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잠언>

1. 제 시간에 떠나고 제대로 하는 자만 목적지에 가게 된다.
2. 시작되었으면 설 시간이 없는 것이다. 목적지에 가서 그때 설 시간이 있는 것이다.
3. 죄는 영혼을 살인한다.
4. 회개는 자기 영혼을 살린다.
5. 사탄을 이겨야 자기를 다스리고 이긴다.

<2009년 6월 23일 화요일 새벽잠언>

1. 기도로 정복하는 것이다.
2. 기도가 무기다.
3. 행치 않아서 얻지 못한다.
4. 영계에 입문하여 있는 자들은 기도하라. 이 시대 주님의 군대, 하늘의 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사령관이다.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
5. 기도하면 주님은 사탄을 처리해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고통 받고 사탄이 얼마나 악독한지 겪게 하신다. 그러고나서 그제야 사탄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깨닫게 하시고, 사탄을 공격하게 하신다.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잠언>

1. 주님은 자신이 싸워 이기고 주님께 오는 것을 원하신다.
2.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신형 대무기다.
3. 귀신과 마귀 주관권에서 사는 자는 매일 벗어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벗어나게 된다.
4.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주관하는 마귀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많고 적은 것은 상관없다. 주님과 일체 되게 마음을 먹어 버리고 결심해 버리면 사탄을 이겨 버린 것이다.
5. 누구든지 죄를 산더미같이 졌든지, 작게 개집만 하게 졌든지 회개해 버리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6. 사탄은 사람이 죄가 없어도 사람을 통해 시기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온다. 죄가 없는 자는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유력하다.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7. 밖에 있는 자도 선생과 똑같은 처지다. 다 인생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 환경은 둘째다. 자기 자신이 문제다. 추울수록 좋지 않듯이, 고통과 환난을 받을수록 정신 차리고 살면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신앙의 표적을 이루게 된다.

<2009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잠언>

1. 사람은 보낸 자 사명밖에 못하지만, 주님은 주인 사역도 하시고 보낸 자 사역도 하셨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어느 때는 주인 입장에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어느 때는 보낸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기도 하셨다. - (해석) 주님은 삼위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과 차이가 있다.

2. 주님을 가까이하여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까이할 수가 있다. 이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 (해석) 안 하면 뺏는다.

3. 주님 뺏기면 세상 것 뺏기고, 하늘 것도 다 뺏긴다.

4. 사람들은 세상 것을 자기에게로 빼앗아 놓고 주님을 가까이하려고 한다. 이는 지극히 육적인 자다. - (해석) 성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자들이다. 주님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와도 안 알아주신다. 그 덕은 안 보신다. 작은 일이라도 일찍부터 오직 주님을 따라 한 것을 크게 보신다.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5. 좁은 데서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과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6. 사람이 누구와 역사를 펴느냐에 따라 문제가 좌우된다.

<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잠언>

1. 내가 여기 누구 보고 오겠느냐. - (해석)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께 누구를 보로 오셨냐고 물으니, 주님은 "너 보러 왔으니 잘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2. 나와 항상 얼굴을 맞보자. - (해석) 제대로 해야 주님과 맞보게 된다.

3. 나와 항상 대화하자. - (해석)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애인같이 항상 대화하자.

4. 굳건해야 된다. 멋있게 뜻을 이루며 가야 된다. 그래야 따르는 자들이 흔들림이 없다. 네 마음은 너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다. - (해석) 절대 흔들리지 말라 함이다.

5.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자. - (해석) 주님은 우리를 믿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안 믿어 준다고 말씀하셨다.

<2009년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온전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온전하다. - (해석) 말쑥 부리는 자는 어디를 가도 말쑥이다.

2. 사람은 물과 같다. 깨끗한 물을 바로 먹지 않으면 오염된다. - (해석) 빨리 전도하여라.

3. 옛것을 모두 장사 지내야 주를 맞는다.

<2009년 6월 30일 화요일 새벽잠언>

1.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취해야 생명길로 가면서 영이 형통한다.

2. 주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도우신다. 살 가능성이 없는 과일 나무는 주인이 퇴비하지 않는다. 주님도 그러하시다.

3. 주님은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 죽은 나무인지, 산 나무인지 보시면서 성령의 불세례와 은혜를 주신다.

<2009년 7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욕성이 살면 영이 죽는다. 욕성이 죽어야 영이 산다.

2. 자기를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자기 행한 것을 옳고 그른 것을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제야 제 갈 길을 바로 가게 된다.

3.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을 시인한다. - (해석)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지적하셨다.

<2009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잠언>

1. 자기가 죄인인지, 미련한지, 의로운지, 잘못했는지 확실히 시인해야 그 행위에 따라 바로 깨닫고 가게 된다.

2. 자기 죄를 시인치 않는 자는 회개치 않는다. 회개치 않으면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해석)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고, 마귀와 가까워진다. 섭리 사람 중에 이런 자들이 많다. 나쁜 자들이다.

3. 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은 시인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시인을 거부한다. 자기 위신과 체면을 세우려고 죄스러운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는 부르지 않으신다.

<2009년 7월 3일 금요일 새벽잠언>

1. 주님은 손가락을 드셨으니, 우리는 젓가락을 들고 따라가서 심정 맞추어 일해야 된다.

2. 주님은 바늘을 들고 가셨으니, 우리는 실을 들고 바짝 따라가서 그때그때 주님을 맞춰 일해야 된다. - (해석) 척척 알고 행하라는 말이다.

3. 마음을 닦지 않은 자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해 바로 지치고 거부하게 된다. - (해석) 그래서 좋은 환경에 살아도 금방 싫증나고, 아름다운 자와 살아도 금방 싫증나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싫증나서 돌아선다. 마음을 닦아야 한다.

<2009년 7월 4일 토요일 새벽잠언>

1. 악에서 의인이 분립되어 나온 후에야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다. 악과 계속 같이 있으면 심판 날에 악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 (해석) 악만 멸하게 해 달라 하지 말고 악에서 나와라. 그래야 악을 멸한다.

2. 주인이 쓰지도 않으면서 필요 없이 잡초를 베지 않듯이, 하나님은 필요 없이 사탄만 멸하지 않으시고, 필요 없이 악인만 멸하지 않는다. 하늘에 속한 자들을 쓰실 때 잡초도 없애 주시고, 행악자도 쫓아내 주시고 심판하신다. 하늘에 속한 자가 하기에 따라 해 주신다. 하늘에 속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귀를 멸해 달라고 하고, 행악자들을 심판해 달라고만 하면 안 해 주신다. 하늘 편 사람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행하는데, 사탄과 행악자들로 인하여 일을 못하게 되든지, 하나님과 주님이 하늘 편 사람들을 쓰실 때 지장이 있으면 악을 제거해 주신다.

3.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그 장소를 쓸 때 그곳의 잡초도 베어 주고, 독뱀들도 잡아 주고, 샘도 파 주는 것이다. 주님도 그러하시다.

<2009년 7월 7일 화요일 새벽잠언>

1.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치를 모르고 “하나님과 주님은 왜 악인들을 그냥 두시냐? 왜 사탄을 멸하지 않느냐? 내가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왜 도와 주시지 않느냐?” 한다. 자기 할 일을 못 하면 돕지 않으신다. 어느 때는 연단하여 앞날에 쓰기 위함이다. 어느 때는 남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게 하신다. 어느 때는 주님이 사랑하니 주님의 짐을 지고 가

게 할 때가 있다. 어느 때는 깨달으라고 할 때가 있다.

<2009년 7월 8일 수요일 새벽잠언>

1. 너희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하자.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만 사랑하는데 자꾸 돕겠느냐? 도운 것도 다시 빼앗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도 너희에게 그러하다. - 예수님 말씀

2. 부모라도, 사랑하는 자라도 사고가 잘못되어 다른 길로 가면 돕기는커녕 그 길을 못 가게 막고 트는 것이다. 손해 간다고만 하지 말고 생명길로 가게 해 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여라.

<2009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잠언>

1.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녕 깨달아라. 자기 심정에 닥치는 것만 깨닫고 불만하지 말고,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회개하고 살 때다.

2. 정신 차리는 만큼 잘되고 정신이 살아난다.

<2009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잠언>

1.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을 기르셨으니 몽땅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그 대함을 생각하시고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신다.

2. 주님과 사랑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3. 자신이 인정하는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새벽잠언>

1. 사랑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주님을 100% 사랑해야 주님이 인정하신다. 사랑의 타락이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말한다. 이제 주님을 100% 사랑해야 복직된다.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달아야 복직된다.

2. 마지막을 보시고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 그런데 마지막 이때마저 주님께 갈 사랑을 세상에 쏟고, 다른 자에게 쏟으면 끝난다. 이때가 그때다. 한 번이라도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살려 주시어 주님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신다.

<2010년 6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잘하는 것이면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거의 자기 생각이다. 자기가 하는 것을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많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니 잘하는 것이 있고, 주님이 직접 함께하시어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주님께 묻고 주님이 직접 함께하시어 잘하도록 하여라. 그래야 뜻이 이루어진다.)

2. 자신이 주님을 위해 잘한다고 했어도 주님께 확인 받기 전에는 뜻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먼저 주님의 생각과 일체 되게 하여라. 진실로 기도하여 응답 받는 기도를 하여라.)

3. 주를 위해 하는 일이라도 주께 묻고 해야 된다.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이 주인을 위해 받을 갈아 주고는 주인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책망을 받았다. 그 받은 이미 씨를 뿌려 놓은 밭이었기 때문이다.

4. 인간은 인간이고, 전능하신 주님은 주님이시다.

5. 인간은 세상에서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 밥을 먹고 살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육신으로서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존귀케 하며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최고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이것이 '영원한 인간 승리'다. 세상에서 온 세상을 다 얻고 주권자가 되어 온 세상을 다 취하고 세상의 것을 누렸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누린 만큼 더 괴롭다. 이는 영원한 실패요,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다.

2010년 6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 마음이 느끼는 대로, 몸이 느끼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보여 주고, 행동하여 느끼고 겪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따라간다.

2.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뇌와 마음에 인식시켜 주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 연속적으로 어떤 것을 뇌에 인식시켜 놓으면 그 뇌는 스스로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이는 연속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뇌에 입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인식을 없애려면 또 다른 것을 뇌에 인식시켜 줘야 한다. 그러면 뇌가 새로운 것을 인식하여 이전에 입력된 내용을 뒤엎게 된다. 이전 것보다 더 좋고 나은 것을 뇌에 인식시켜 주면 이전에 뇌에 인식되고 세뇌된 것을 스스로 부정함으로 그제야 뇌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이전의 인식을 뇌에서 제거하게 된다. 마치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이 손에 들어와야 그제야 이전의 것을 버리게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것은 잘못된 이론인데도 자신이 그것을 옳게 인정하고 좋은 이론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살면 스스로 그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 더 이상적이고 옳은 것을 듣고 자신이 인정할 때 그제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이론을 버리게 된다. 뇌에 인식시키고 입력시켜 놓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뇌가 제대로 인식하고 뇌에 옳은 것이 입력되어 있어야 옳은 행실을 하게 된다.

3. 누구든지 행해야 나쁜 생각과 행실이 잘라지고 없어진다. 네 행위가 칼이다. * 오늘도 기도하여 먼저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을 일체 시키고,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과 사랑으로 일체 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생각과 말씀과 뜻대로 행함으로 나쁜 생각과 행실을 자르고 생활의 승리를 이루고 영적인 승리까지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영계는 한 차원씩 더 올라갈수록 더 알게 되고, 더 좋고, 더 깊다. 자기를 온전히 만드는 대로 더 차원 높게 변화되어 천국의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살게 된다. 가장자리에서 점점 핵심지인 중앙으로 들어가야 더 좋고 최고인 장소로 가게 된다.

2. 사탄과 싸우지 않으려면 주님과 사랑으로 일체 되어 휴거된 급에서 살면 된다.

3. 한 해만 참아 주면 퇴비하여 열매를 맺게 하듯 한다고 하여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역사하며 열매를 열라고 참아 주었고, 또 한 해는 내가 예비해 놓은 자를 찾아오고 각자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참았다. 이제 더 참고 기대할 것이 있느냐. 참고 기대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올 시간뿐이지 않겠느냐.

4. 나 예수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2010년 6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마음은 굳세게 결심하지 않으면 연기처럼, 바람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순간 흩어진다. 변치 않는 주님의 정신과 마음으로 묶어 놔야 된다.

2. 항상 주님과 대화해야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첫 마디부터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대화하며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

3. 욕이 뭉이거나 욕이 사정상 왕래하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면 영이 욕 대신 더 활동하며 만날 자를 만나게 된다. 사람이 말로 못 하게 되면 글로 더 말하고 소통하게 되는 격과 같다.

4. 욕으로 할 때는 보이는 세계에서 더욱 발전하지만, 육적인 자가 된다. 욕이 뭉이면 그 대신 정신과 마음과 혼과 영이 더 활동하게 되므로 영적으로 더 발달되고 영적으로 일하게 된다.

5.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낙을 삼는 것이 나에게는 적이 되었다. 영원한 생명길을 가기 위하여 살아야 하건만, 사람들은 순간 잠시 잠깐 오는 대로 육신의 즐거운 일들을 해 버렸다. (주님의 말씀)

<2010년 6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지극히 작은 일도 하려고 생각을 굳히고 결심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된다.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결심하고 충성으로 해야 행할 수 있다.

2.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일을 당하게 된다.

3. 큰 사건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다.

4. 작은 것과 큰 것, 항상 이 두 가지를 보고 확인하고 깨닫고 판단할 줄 알아야 모두 볼 줄 아는 자다.

5. 작은 것 10000 가지를 보아도 큰 것 하나를 본 것만 못 한다.

6.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보려면 확대시켜 보아라. 이치는 같은 이치다.

<2010년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잠을 뺏기면 욕이 피곤하지만, 새벽 시간에 잠자느라 기도 시간을 뺏기면 영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삶도 피곤한 것이다.

2.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진행되고 있어도 모르면 순간 지나간다.

3.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한 시대가 가도 모르는 자에게는 순간 지나간다.

4. 깨어 근신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땅에서 인연을 맺어 영원까지 간다.

5. 새벽에 기도해도 나의 계시가 없다고 하며 그것만 바라보지 말아라. 먼저는 네 양심이 네 마음에 하는 소리를 들어라. 항상 기도할 때 자기 양심이 자기를 깨닫게 하고, 자기 마음이 자기를 깨닫게 한다. 이것도 자기를 유익케 하는 것으로서 산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 준다. 그러다가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고, 내가 깨닫게 해 준다. 이것이 연속되어 깊어지게 되면 내가 계시할 것을 계시해 준다.

<2010년 6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주님의 역사는 신의 역사이기에 어느 때는 10분, 어느 때는 한 시간, 어느 때는 몇 시간, 어느 때는 하루, 어느 때는 일주일, 순간순간 진행되고 끝난다.

2. 사람이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자기 역사가 일어난다.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무엇을 행하게 되고 이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자기 신앙의 잠도 깨어나야 자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3. 잠으로만 피곤한 몸을 풀려고 하면 항상 4~5시간을 자야 된다. 그렇다고 피곤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 자야 하고, 자기가 더 이상 잠자기 싫을 때까지 계속 자게 된다. 그러면 7~8시간까지 자게 되고, 그 이상을 자게 되기도 한다. 잠자서 풀 것 운동으로 풀고, 목욕해서 풀고,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도 풀고, 그밖에 여러 가지로 풀 것이 많다. 새벽에 기도하여 그 시간을 기도 체질로 만들어라.

4. 주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해야 정상이다. 억지로는 못 한다. 은혜 받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의 희망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다. 해 봐야 알게 된다.

<2010년 6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피곤하다고 온종일 놀아 봐라. 그것도 결국 피곤하다. 주님의 일을 해도 피곤하다. 피곤하다고 놀든지, 주님의 일을 하든지 둘 다 피곤하다. 둘 다 피곤하다면 고생되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하고 희망 있다.

2. 너희는 주님께 속한 삶과 자기에게 속한 삶과 세상에 속한 삶이 각각 어떠한지 시험해 보아라.

3. 사람의 마음은 이것을 하다 보면 이것 말고 저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다 보면 저것 말고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영혼을 위하여 영의 일을 뿌리박고 해야 된다.

4. 피곤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서 쉬지 말고 일자리에서 쉬어라. 피곤하다고 일자리에서 나오면 일의 리듬이 깨진다. 한 번 일의 리듬이 깨지면 그 리듬을 다시 찾는 데만 해도 한참 시간이 걸리기에 오히려 손해다. 밭을 매다가 지치면 밭 고랑에서 쉬라는 것이다. 나무 그늘 아래서 쉬다가는 피곤하니 잠들어 해 지는 줄 모른다.

5. 일꾼은 일하다 힘들면 그 자리에서 허리 펴고 쉰다. 그래야 일에 신경이 풀리지 않고 마음도 풀리지 않고 다시 일 한다.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개인에게 맡긴 일들은 각자 부지런히 하면 할 수 있으니, 내가 볼 때 항상 일 밀린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라.” 하셨다.

2. 일은 제때 안 해서 밀리는 것이지, 많아서 밀리는 것이 아니다. 일을 제때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두고 필요 없는 다른 일을 하니까 자기 할 일이 밀리는 것이다.

3. 작은 일도 안 하면 평생 가고, 큰일도 하면 하는 시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다. 일은 작으나 크나 착 들어붙어서 무섭게 해야 된다.

4. 농사짓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신앙의 일을 하는 자들은 신사요, 양반이다. 노동하는 자들을 보아라. 노동은 몸부림이다. 이런 일들에 비해 주님의 일은 신선의 일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공사판에 가서 한 번 일해 보고, 시골에 가서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밭을 매 보고, 온종일 풀을 베고 땅을 파면서 일해 봐라. 얼마나 육체가 고달픈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5. 천사의 일도, 신사의 일도, 신선의 일도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하게 된다.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작품을 만드는 자들을 보아라. 그렇게 힘들어도 좋아서 일하고, 즐거워서 일하고, 다 만들어 놓고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서 일하니 쓰러져 가면서라도 몰두하여 하지 않느냐. 너희도 그같이 해야 된다.

2. 힘든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그 힘든 생각이 자기를 지쳐 버리게 하여 그 일보다 마음이 더 힘든 것이다.
3. 자기 일에 만족하며, 누구보다도 좋은 일을 맡아 일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보람 있게 해야 된다.
4. 주님이 주신 일도 때가 있다. 또한 주님이 생각하고 사랑해서 맡긴 일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된다. 그 래야 힘들지 않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다.

<2010년 6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사탄이 방해하기에 힘든 일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사탄은 우리가 공적인 일, 주님의 일, 자기를 위해 일을 하면 그 일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수시로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
2. 일할 때는 천사에게 도와 달라고, 주님께 힘 달라고 하고 대화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일을 쉽게 하도록 도와주신 다. 또한 주님과 함께 한 일은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일이 된다.
3. 이왕 일을 할 바에야 멋있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다.
4. 일을 못 하면 일만 저지르고 방해만 되니 배워서 하고, 옆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경험을 쌓아서 하고, 작은 일을 먼저 하고 큰일을 하는 것이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다고만 해서 제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안 할 일을 하거나, 보다 좋게 하지 못하면 일해도 손해다.

<2010년 6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일할 때는 주님께, 그리고 일의 주인이 되는 자에게 묻고 허락받아 그것만 해야 한다.
2. 한 가지를 허락받고 다른 것까지 하면 안 된다.
3. 성령으로 일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자기의 영원한 공적이 된다. 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육성으로 하면 오히려 주님의 심정만 상하게 한 일이 된다.
4. 한 방향으로 일하되, 개성대로 맡기고 의논하면서 해야 된다. 주님의 일이니 자기 마음대로 하면 불법이다.
5. 일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자가 되어 버린다. 일해야 자꾸 일의 복이 보이고, 깨달게 되고, 주님도 일을 주신다.

<2010년 6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일에 비해 보수만 더 받는 자들이 있다. 원래 일을 해 주고 일한 것의 3분의 1을 보수로 가져가는 것이다. 회사나 정부에서는 자기가 일한 것의 4분의 1을 준다. 모두 생각해 보아라.
2. 밥만 먹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 모든 삶까지 투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삶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샅꾼 목자가 되지 말아라.
3. 선생은 삶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해 본 일이 없었다. 밥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했다. 지금은 밥 먹고 주님의 일만 하니 100% 주님 유익, 섭리사 유익이다.
4. 무익한 자는 결국 쫓겨난다.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1년 동안 먹여 주고, 재워 주고, 교인들이 신경 써 주고, 보수 받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 교역자들은 1년에 몇 명을 온전히 전도했는지 보아라. 1명 전도하는데 30만원 드는 것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다. 이래서 주님 앞에 유익이 되겠느냐.
2. 1년에 온 교인이 몇 십 명씩 전도해야 겨우 유익이다. 선생이 나가면 1년에 수천 명씩 전도한다고 했다. 과거에 그 같이 했기 때문이다.
3. 공적이 없는 자는 자기 현실 유지만 하는 자다. 천국에 가 보니 그런 자들의 집은 말만 천국에 있지, 천국에서 수십억 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4.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놀라게 했다는 말을 들어야 천국의 핵심지로 가는 자가 되고, 주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일체되어야 천국의 핵심지로 가는 자가 된다.
5. 영계에 가서 한 번 보고 와야 육신의 행위가 당장 변하게 된다.

<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육신이 살아 있는 것이 그 얼마나 귀하고 중한 것인지, 육신은 지능이 낮아서 그 가치와 소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영계로 들어가서 보면 영은 지능이 높기에 육신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100배, 1000배 깨닫게 된다. 또 영이 생명권에 살아 있다는 것은 육이 살아 있는 것보다 그 가치가 수백만 배 귀하고 중한데, 육신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영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역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 영이 생명권에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누구나 확실히 알게 된다. 이 귀한 생명은 혼자 지킬 수 없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 지켜야 된다.
2.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무너진다. 기도는 자기 자체 공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수수관계의 삶을 살게 해 주기 때문이다.
3. 기도는 자기 영과 혼과 마음과 육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묶어 매는 역할을 한다. 고로 환난 때 강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게 한다.
4. 하나를 행해야 둘을 행하게 되고, 둘을 행해야 셋을 행하게 된다.

<2010년 6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죄가 깨끗이 씻어 없어진다. 기도로 죄의 짐을 매일 벗어 버리니 자기 영과 혼과 마음과 육이 죄에 묶이지 않게 되니 사탄의 주관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꼭 기도해야 된다.
2. 사탄도, 천사도, 인생들도 하나님과 겨루지 못한다. 인간이나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무기는 마치 어린아이 물총에 불과하다.
3.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것이 될 수 없다. 깨끗한 것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4. 죄는 마음에도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에 죄를 생각하니 행동으로도 죄를 짓게 된다.
5. 육신의 승리는 100년 승리이고, 신앙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다.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께 배울 것이 1000가지도 넘지만, ‘오직 사랑’ 하나면 그 속에 다 연결되어 있다. 주님 사랑을 배워야 주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2. 누구든지 진리보다 사랑을 가르쳐 주어라. 그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성령과 함께 가르쳐 주신다.
3. 환경이 천국이라도 사랑이 천국이 되지 않으면 환경 천국으로 인한 도움이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것이다. 사랑이 천국이 되는 곳이라야 환경도 천국이 된다.
4. 주님과 사랑의 문이 닫혀 있으면 백문이 열렸어도 곤고하고 천국이 되지 못한다.
5.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이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고, 때가 되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6. 인간이 창조주와 사랑이 불타고 그 보낸 구원자 예수님과 사랑이 불타며 살아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이 불타야 인생들의 모든 삶도 사랑으로 운행된다.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맛없는 음식도 체질에 배면 맛있다.
2.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저마다 처음에 하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지만 체질에 배면 기쁘고 힘들지도 않은 것이다.
3.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을 받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신데, 어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두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기도해도 죄로 인한 탕감 기간과 고통 기간이 있고, 또 의인이 받아야 될 고통은 받아야 의인들 편이 유익한 것도 있고, 의인 편에서 책임을 못 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있다. 또한 하나님의 정한 한 기간이 가야 되고, 정한 기간까지 악이 심판의 고통을 받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과 자기 일과 섭리사 일들을 두고 좁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풀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오해하고, 그 능력을 업신여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깊이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야 된다.
4. 생명에 관한 일들은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전부다. 고로 환난, 핍박, 악평,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배고픔과 고생과 각종 고통들이 문제가 아니다. 육신과 함께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천국으로 가느냐가 문제다. 일반 고통들은 누구나 겪는 것이다.
5.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우며 고통을 받을 때 사탄과 악한 자들의 꾀계와 음모와 각종 술법을 배워 네 인생에 귀히 쓰며, 또 다시 당하지 않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어 거기 빠져 고통 당하지 않게 하고, 승리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2010년 6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간의 존재 세계로 창조하셨다. 시간에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몇 시에는 밤이 되고, 몇 시에는 낮이 되게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인간도 시간과 함께 존재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시간을 빼앗기면 존재함도 빼앗기게 된다. 그 시간에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면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만큼 존재하지 못한다.
2.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시대적 중심인물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 전초자들이다. 중심인물이나 선지자들을 통해 그 시대

에 따라 그들의 수준으로 말씀의 전초가 되면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이다. 이는 여자가 성장하여야 그에 따라 상대적인 남자가 출현하는 격과 같다.

3. 인류는 전진 역사다.

4. 하나님은 시대가 흘러갈수록 차원을 높여 가면서 섭리하셨다. 차원을 높일 때는 그 시대에 합당한 자를 미리부터 택하여 기르고, 주님의 수준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 먼저 실행하게 하고, 그 후에 그를 통해 모든 자들에게도 그같이 가르쳐 말씀으로 시대의 수준을 높여 행하게 하셨다. 사명자들을 통해 수준을 높여도 전환은 못 한다. 전환은 하나님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구약-신약-성약이다.

5.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대의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그 시대 뜻을 땅에서 펴지 못하여 사람들의 육신이 행치 못하게 되어 그 영들이 수준 높여 살지 못하고 그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되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유컨대 남자는 지식과 사랑이 다 성장되었는데, 여자가 육도 정신도 성장되지 않으면 남자의 수준의 사랑에 따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 고로 시대에 따라 반드시 중심자를 통해 말씀을 주어 수준을 높여 준 후에 오신다.

6.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기 전에도 지구 세상에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지만 그 정신과 문화 수준이 마치 1세~6세가 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 구원역사를 펴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 때 겨우 한마디씩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시작한 것이다. 비유컨대 많은 여자들이 있다 하자. 그런데 다 어린아이라 하자. 한 남자가 사랑의 역사를 하고 싶어도 아직 젖 먹고, 기어 다니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또 일어서서 걸어 다니더라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역사를 시작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그러했고, 아담과 하와 때도 완전히 원주민들이었다. 고로 더욱 하나님의 뜻이 깨지게 된 것이다.

<2010년 7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물건이고, 사람이고 쓰고서 늘 어디 놓았는지 기억나게 놔둬야 찾을 때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갖다 쓰게 된다.

2.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3.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0년, 1000년을 산다 해도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

4. 육체는 행동하는 것이 일이고, 정신은 생각하며 정신으로 행하는 것이 일이다. 어떤 선한 것을 한 가지 생각했는데 자꾸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하며 엮어 가는 것이 생각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정신으로 행한다는 것이다.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일이 되고 공적이 되어 하나님과 주님께 큰 상을 얻기도 하는 일도 많다. 육신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얻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생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의 죄를 놓고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같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또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며 도움을 구하면 자신의 정신과 마음으로 일을 한 것이 된다.

<2010년 7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음식 만드는 법과 물건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되듯이, 의인 만드는 법을 알아야 된다. 밥을 하는 것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이나, 빨래를 하는 것이나, 자기 몸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이나, 하나하나 배우면서 신경 쓰면 안 되는 것도 해지는 것이다.

2. 기도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도 정해 놓고 하면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결국은 해진다. 이는 뇌에 입력되어서 시간이 되면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만큼 해진다.

3. 해 버릇해야 힘들지 않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안 하던 일을 하려면 처음에는 힘든 것이다.

<2010년 7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더 얻으려면 더 고생해야 된다.
2. 실적은 과거에 남아 있고, 몸은 현실에 남아있다.
3.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항상 자기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다.
4.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나간 날의 시간들을 사올 수는 없다. 남은 날을 가지고 더 하여 채워야 된다.

<2010년 7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나 그냥 받으면 안 된다.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된다. 종이 되면 종의 입장에서, 아들딸이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 애인이 되면 애인의 입장에서 사랑하며 받는 것이다.
2. 사랑은 사랑으로 받는다. 주님이 사랑하여도 그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이 사랑하는 목적을 알고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을 받게 된다.
3. 내가 취하고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시다. 우리는 주님의 손발이다.
4. 사람들은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를 못한다.
5. 주님의 소원대로 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2010년 7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몸이라도 길을 잘못 들여 놓으면 다스리기 힘든 것이다.
2. 자기가 하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다. 자기가 이겼으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3.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리면 마음이 심란하여 집중이 안 되는 것이다. 눈을 감고 귀를 막아야 마음도 정신도 집중 되어 편안한 것이다.
4. 자기 생활의 일들은 자신이 결심하고 하면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다. 내가 지켜만 보더라도 너희에게는 감격이다. (내가 늘 지켜보고 있으니 감격하며, 결심하고 자기 생활의 일들을 하여라. 그러면 다 다스리고 할 수 있다.)

<2010년 7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모기가 물어뜯어도 괴로운데, 악마가 괴롭히면 그 얼마나 괴로우며 지옥은 그 얼마나 괴롭겠느냐.
2. 자기가 부지런히 다스리고 열심히 하면 자기 환경도, 자신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으로 만들어 기쁨으로 쓰면서 살게 된다.
3. 마음 천국, 환경 천국 만들어 주님과 같이 살아라.
4. 삶이 환경이고, 집과 방이 환경이고, 몸이 환경이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살아야 한다.
5. 미련하게 바보처럼 산다고 누가 와서 자기 몸같이 느끼며 대신 해 주지 않는다. 주께 말하고 내게도 말하여라.

<2010년 7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무릎을 꿇고 있으니 지옥이고, 무릎을 펴니 천국이다. 자기 무릎을 꿇고 있으면 지옥이다. 그러니 즉시 펴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접어 놓으면 지옥이다. 즉시 펴라는 말이다.
2. 편한 자세도 처음에는 편하지만 그 자세가 계속되면 고통이다. 그래서 인생은 움직이면서 살아야 고통을 면한다.
3. 앉아서 좋은 삶이나 행복을 기다리지 말아라.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찾아야 한다.
4. 어린아이가 땅에 떨어뜨린 비스킷이 개미를 찾아다니지 않는다.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개미만이 비스킷을 찾아 먹으며 행복을 누린다. 인생도 그러하다.
5. 새벽 일찍부터 행복을 찾아라. 날이 밝으면 사람들이 밝아 사라진다.

<2010년 7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집도, 방도, 환경도 편하다.
2. 마음은 어떻게 해야 편하겠느냐. 인생이 제 마음으로 한계 이상 편안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3. 주님도 스스로는 편하시지만, 미완성된 사랑하는 인생들로 인하여 편치 않으시다.
4. 자신이 완성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만족하도록 기뻐하신다. 고로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완성되도록 만드신다. 마치 집 없는 자가 겨울이 오기 전에 집을 만들듯이 만드신다.
5. 누가 자기 마음과 몸을 잡고 있으면서 못 하게 하느냐. 사탄 놈이 아니냐. 자기 놈이 아니냐. (=자기가 아니냐.)

<2010년 7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사람과 하나 되어 살 때 10배 기쁨이 오고, 자기 사랑하는 자와 하나 되어 살 때 100배 기쁨이 오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때 1000배 기쁨이 온다.
2.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일밖에 남는 것이 없다.
3. 단 것만 먹으면 단 맛이 없어진다. 인생의 삶도 그러하다.
4. 쓴 것을 먹은 후에 단 것을 먹어야 단 맛이 온 몸에 느껴진다.
5. 어제든 오늘도 너 그 자리에 있으면 나 못 만난다. 매일 물과 같이 흘러라. 강을 향해, 바다를 향해 수준을 높이며 매일 마음도, 몸도 유유히 흘러야 나를 만난다.

<2010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마음과 몸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그냥 놔두면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말로 막고, 몸으로 막아야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2. 자기 몸과 마음을 그냥 놔두면 육신은 육성대로 흘러가고, 마음은 마음대로 흘러간다. 주의 말씀으로 막고, 또 몸으로 행하여 몸과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시간마다 다스려야 된다.

3. 냇물은 막기 쉬워도 강물은 막기 어렵고, 바다로 가 버리면 아예 막을 수 없어 끝난다. 실 가닥 같은 물은 한 삽 흙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범람하는 물은 한 삽 흙으로는 못 막는다. 네 마음은 물과 같다. 네 마음이 어떤 그릇된 것과 이성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생각하며 실 가닥같이 다른 데로 흐를 때, 네 마음이 게으름과 태만으로 실 가닥같이 흐를 때 즉시 막아라. 그 마음이 내(川)가 되어 흘러가고, 강이 되어 흘러가고, 바다가 되면 못 막는다. 마음은 처음 출발할 때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한다. 고로 그때는 막을 수 있다.

4. 곡식밭의 잡초는 언제 뽑아도 뽑아야 되니, 눈에 보이기만 하면 뽑아서 깨끗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마음에 불의한 생각이 있으면 작고 작은 잡초라도 즉시 뽑듯이 즉시 뽑아내야 된다. 영경귀가 어릴 때는 곡식같이 부드럽고, 가시나무가 어릴 때는 가시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다 뽑아야 된다. 크면 손 찌르고 마음 찢어서 못 뽑는다. 찌르는 것이 없고 부드러워 손에 잡힐 때 뽑아 버려야 된다. 마음의 불의한 생각도 작을 때 깨끗하게 뽑아내야 하듯이, 모든 거친 일들도 작을 때 다 뽑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5. 마음속의 아주 작고 작은 잡초 씨라도 다 들춰내어 태워야 된다. 추호도 남김없이 깨끗이 해야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항상 역사하신다.

6. 잡초는 마귀요, 악이요, 자기를 죽이는 독초다.

<2010년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 잘되는 길 있다고 문 열어 주면 안 된다. 잘 안 된다고 문 열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잘되더라도 결국은 자기 영혼과 육신이 사망으로 가니 열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2. 유익된다고 가고, 잘된다고 세상으로 가면 생명길은 못 간다. 생명길을 가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있다.

3. 세상 물질세계를 중시하여 산 자와 신앙을 중시하여 산 자를 3년 후, 10년 후에 보면 신앙을 중시하여 산 자가 더 잘되어 있다.

4. 육신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 육신은 좀 편하다. 하지만 영과 마음은 편치 않고 얻는 것이 적다. 영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육은 불편하다. 하지만 영과 마음은 편하다. 결국 영에 중심을 두고 산 자에게 남는 것이 있다. 이는 보편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5. 육신을 위해 전문적으로 산 자와 주의 뜻과 영을 위해 전문적으로 산 자를 비교해 보면 영을 위해 산 자는 거의 영적인 의의 재벌가가 되고, 육을 위해 산 자는 가끔 육신의 재벌가가 되지만 나머지 많은 자들은 오히려 실패자가 된다. 육신은 유지만 하고, 나머지는 영을 위해 살아야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 되어 인생 승리자가 된다.

<2010년 7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중심과 함께하면서 행하여라. 그 중심에 주님이 행하고 다니시니 잘 보아라. 선생이 세운 자가 선생 안에 중심이 된다. 고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2. 내게 배워 나를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묻고 실천해야 중심이 된다.

3. 편지는 편지의 책임자이며 중심인 교단을 통해 받으니 그곳으로 해야 자기 유익이다.

4. 보고는 자기 입장에서 하면 안 된다. 상대의 말도 들어 보고 보고하여라. 문제가 정확해야 주님도 선생도 답을 정확히 준다.

5.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아라. 자기 의지를 주님의 생각이나 선생의 생각으로 계시화하면서 말하지 말아라.

6. 선생이 너희에게 편지를 주는 것도 하나의 계시다. 선생의 계시가 이상하면 확인하여라. 문제를 잘못 주었기에 답을 제대로 못 준 것이다.

7. 자기가 자세히 파악하면 답을 찾으니 선생에게만 답을 구하지 말아라.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집을 읽고 또 읽으면 답이 나오듯이, 당연한 문제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라. 글로 하려니 답하기 어렵고, 문제를 제대로 안 주니 주님께 물어도 답이 없는 것이 많다.

8.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 속에 거의 답이 있다.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심하여라.

9. 의논이 없으니 될 것이 더 안 되었다.

<2010년 7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편) 비바람 몰아쳐서 철새들 모두 날아갔어도 폭풍 끝나고 나면 또 철새들 날아온다. 환난 핍박 몰아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환난도 핍박도 끝이 난다. 그때 힘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다가 환난이 끝나면, 환난 날에 못 한 것을 하며 네 원한이 풀리게 하는 것이다.

2. (주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과 같이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늘의 더 큰 뜻을 품고 사랑하는 애인과 의논하고 타국에 갔다. 그가 타국에 가서 뜻을 이뤄 놓고 10년이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자기 사랑하던 자가 다른 자를 사랑하면서 살았다 하자.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의 방법은 사랑을 지키지 못한 자가 깨끗이 청산하고 본래의 맘으로 진정 회심하고 따르면 용서하고, 품은 뜻을 같이 이루며 가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자를 세워 본래 이루려던 뜻을 이루며 가는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3. (주편) 나 예수 외에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는 나의 말을 깨달아라. 나의 온전한 말을 깨닫고 알고 따라라. 네가 사랑하려고 선정한 자가 너보다 다른 자와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겠느냐. 나도 그러하다.

4.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해 주셨다. 또한 꼭 죽을 곳에서 살려 주셨고,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속의 죽음의 경지에 처했을 때 도와 살려 주셨고, 메시아로서 사랑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것보다,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님을 100% 사랑하라는 말은 주님을 100% 사랑하고 다른 자는 70%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른 자를 70% 사랑하다가 후에는 그를 사랑하게 되니, 오직 주님만 100% 사랑하고 끝나라는 것이다. 과일 170개가 있으면 100개는 주님께 드리고, 70개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다. 170개 모두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 된다. 주님께 다 드리면 다른 자에게 10개를 주든지, 20개를 주든지,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5. 자기에게 있는 것 100%를 모두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100% 사랑하는 자가 된다.

<2010년 7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제대로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2. 나에게 지혜와 총명의 시간이 있다. 그때는 자정을 바로 넘긴 새벽 시간이다. 과학적으로 그러한가? 아니다.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3. 한 번 주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래야 열게 된다.

4. 목상이 아니고 집중이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나에게 나오라.

5. 묵상 기도하지 말아라. 묵상 기도하면 졸린다. 절간이 아니다. 똑똑하고 자세하게 주께 고백하는 기도를 하여라.

6. 주님은 기도할 때 옆에서 듣고 계신다. 주님의 생각대로 기도해야 통한다.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영적 세계는 주관권마다 꼭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차원이 다르다. 고로 기도할 때뿐 아니라 평소 생활 가운데서도 자기 수준을 스스로 높여 행하며 자꾸 수준을 높여야 한다.

2.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든지, 자신이 영의 세계에 진입하게 되면 육신이 힘들어도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며 끝까지 가야 한다. 힘들다고 하다가 말면 영의 세계 입구에서 있다가 나오게 된다. 끈기 있게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찾으며 그 단계의 갈 곳까지 가야 한다.

3. 누구든지 1단계 영계는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정신을 집중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기가 주님께 하는 말에 집중하면서 해야만 산만하지 않고 잡념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 항상 준비해 놓고 기도해야 그 시간에 제대로 기도하여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마치 일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사러 나가는 것과 같아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듯이, 기도하다가도 잡념이 들어가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 새벽 시간을 위해 평소에도 늘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4. 세상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데 방식이 있으니, 영계에 들어가는 방식이 있는 것이다. 고로 배우고 기도해야 된다. 영계에만 들어가려고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과 일체 되어 진정 온전하게 살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신앙체험에서 끝나려고 기도하여 영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5. 새벽 시간은 자고 일어났기에 피곤한 뇌가 휴식을 하여 잊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총명한 생각이 떠오르는 영감의 시간이다. 고로 새벽 시간을 주님을 부르고 찾는데 꼭 써야 된다. 주님도 새벽 시간을 정해 놓고 행하신다. 새벽을 위해 낮에도 준비해야 된다. 새벽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은 낮에도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정신과 행실을 가지라는 말이다. 정말 하고자 결심하고, 자기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해야 된다. 결심하고 정신을 집중하여 기도하면 사탄의 방해도, 육적인 어떤 방해도 다 물리치며 깊이 기도할 수 있다.

<2010년 7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적인 사랑 세계는 ‘마음의 흥분’으로 시작되고, 주님과 영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된다.

2. 먼저 자격을 갖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자동적으로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을 매일 사랑하면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사는 자의 영을 보면 그 자체가 빛난다. 이렇게 사는 자는 지상세계에 살고 있으나 영적인 자가 되어 사는 자다.

3. 영적인 자가 정신도 강하고 행동도 강하여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손발이 되어 전도도 잘하고, 신령한 눈을 떠서 모든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 먼저 움직인다.

4. 영계는 육신 생각의 실상 세계이며, 육신 행동의 실상 세계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매일 온전하도록 반복하며 행해야 된다. 몸이 좋아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다. 3개월, 7개월, 1년씩 운동하고 가꿔야 좋아지고 표가 난다. 식사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한 번의 기도로 표가 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영이 빛나게 하려면 육신의 체력을 좋게 하듯이 몇 달, 혹은 1년씩 해야 된다. 건강도 몇 달씩 음식 조절을 하며 약을 먹고 기도해야 표가 나게 좋아진다.

<2010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한 단계씩 꾸준히 매일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야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 것이다.
2. 수준을 높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전도도 더 뜨겁게 더 시간을 내서 하라는 것이다.
3. 수준을 높이라는 것은 목적으로 행하던 것을 보다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4. 주님과 함께 수준을 높이려면 성장하고 매일 변화해야 된다. 매일 변화되고 수준을 높이는 자라야 주님과 가까워진다.
5. 소로 길을 넓히고 자전거 길을 내고, 자전거 길을 넓히며 찾길을 만들고, 도로를 포장하여 길을 만들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준을 더 높여 세련되게 행하고, 목적으로 대화하던 것 영적으로 대화하고, 낮에 주님을 만나던 자는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던 자는 주님과 단둘이 만나고, 주님과 단둘이 만나던 자들은 보다 다른 차원으로 만나 사랑하는 것이다.

<2010년 7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자신이 소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수준을 높이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다.
2. 늘 같은 것만 반복하는 자는 성장하지 못하는 자요, 수준과 차원을 높이지 못하는 자요, 인생과 신앙의 삶을 지루하게 사는 자요, 주님을 애타게 하는 자다.
3.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간다. 그 희망으로 더 잘되게 하고, 앞날에 목적인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삶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4. 사랑도 늘 하던 방법의 사랑은 처음엔 희망이 불타지만, 때가 높아졌을 때는 그 사랑도 보통이 된다. 고로 더 차원을 높이는 사랑, 방법을 달리하는 사랑이다.
5. 운동도 똑같이 계속하면 발전이 없는 것이다. 더 고도의 자세를 소화하며 유능하게 해야 된다.
6. 어깨운동, 가슴운동, 하체운동도 매일 똑같은 숫자만 하고 똑같은 그 시간만 하면 더 이상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다. 개수도 늘리고, 시간도 늘리고, 개수와 시간을 늘린 만큼 먹어야 된다. 신앙도 이와 같다.

<2010년 7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영계다. 자기 육계다. (해석 : 자기 수준급대로 처하여 보고 겪는 영계와 육계라는 말이다.)
2.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받아라. 주님과 의논하면서 사는 것이다. 다른 위치에서 거기 해당되는 계시나 다른 사람이 받는 계시를 똑같이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3. 주님께 한마디면 끝나는데 사람들에게 천마디 해도 안 끝난다. 고로 주님께 의논하고 대화하고 애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여 답을 얻고 할 일을 지시 받아라.
4. 육계는 육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계이고, 정신계는 정신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는 세계이며, 영계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몸으로 가는 세계다.
5. 작아도 그때 받아 기록해야 된다. 낮은 바닥이나 계단이라고 해서 딛고 올라가지 않으면 높은 곳에 오를 수 없는 것이다.

<2010년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그때그때 그 일을 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었을 때 해야 지혜도, 지식도, 생각도, 힘도 생겨 하게 되는 것이다.
2. 감동이 끝났을 때는 하기 싫은 감동으로 뒤바뀌게 된다. 그러니 할 수 없게 된다.
3. 감동이 되었을 때는 10명이 같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힘이 와서 하나 되어 행하게 된다. 그러나 감동되지 않았을 때는 100명이 같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힘도 없다. 고로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감동이 되어야 한다.
4. 기도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
5. 내가 너희에게 어떤 사명을 주거나 내가 너희를 통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너희를 감동시켜 하게 한다. 강하게 감동시켜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마음이 급하게 만들거나 여러 가지로 감동시켜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급히 행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마음의 감동이 오도록 기도하여라. 너희가 어떤 해야 될 일을 놓고 감동 없이 그냥 하면 하다가 말게 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끝까지 못 하게 된다. 먼저 마음에 감동이 오도록 기도하면, 성령으로 감동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더욱 감동되어 그 일들을 더욱 힘 있게 하게 된다.

<2010년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감동되면 내게 물어보고, 즉시 그 감동된 곳에 가서 행해야 한다.
2. 성령을 받고 감동되었는데도 행하지 않았으니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 후에 급히 일하게 된다. 감동되었을 때 행해야 성령님과 내가 계속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너희가 다음 것을 또 하게 된다. 성령의 불이 꺼진 것은 감동을 주었는데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동이 없어지고 성령의 불이 꺼져 쓸쓸하게 되고 힘들게 된 것이다.
3. 그때 못 했으면, 기어이 하고 마는 중심자 표상자를 따라 너희도 그같이 하여라.
4. 내 음성이 너희에게 들리지 않아도 나는 새벽마다 '기도하라.'고 너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너희 옆에 가서 감동을 준다. 그 감동을 받고서도 너희가 행하지 않고 번뜩 일어나 순종하지 않으니, 그 감동이 곧 식어 버려 결국 못 하게 되는 것이다.
5. 너희에게 감동이 올 때는 내가 가든지, 성령님이 가시든지, 내 아버지가 가신 것이다. 행여 옆에 가지 않았어도 삼위의 영의 마음이 네게 전달되기 때문에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 번뜩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2010년 7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도 감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2. 나 예수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도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느냐. 이는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사탄이 옆에 오면 너희가 그 마음을 받게 된다. 겨울철에 불을 옆에 갖다 놓으면 따뜻한 느낌이 오고, 여름에 얼음을 옆에 갖다 놓으면 차가운 느낌이 온다. 이와 같이 사탄이나 귀신이 옆에 오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사탄은 나쁜 마음을 주며 유혹하니, 사탄이 옆에 오면 너희가 그 영향을 받고 마음이 감동되어 행하게 된다. 고로 잘못된 감동이 오면 사탄이 주는 것이니 즉시 나를 부르면서 사탄을 물리쳐라. 나의 뜻을 두고 좋은 감동이 오는 것은 성령님과 나의 주관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하여라. 내가 다 보고 있다.
3. 감동을 주었을 때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글도 쓰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모두 잘되는 것이다.

4. 내가 감동을 주었을 때가 문이 열린 때다.

5. 감동받지 않고 하면 힘들고 억지가 되고, 몸은 하는데 마음이 원치 않아 형식이 되어 그 행함은 보는 자에게도 눈엣가시와 같다.

6. 나는 너희가 억지로 하지 않도록 너희 마음을 감동시켜 기쁨으로 좋아서 날면서 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먼저 의의 말과 행실로 감동을 시키고 하도록 하여라.

<2010년 7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못 한다. 억지로 하면 꿀 같은 사랑이 되지 못하고, 마치 설탕을 타서 먹는 물 같은 사랑밖에 안 된다. 언제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말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영원히 잘된다는 말을 매일 해야 실천하려느냐. 너희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라고 말했기에 나를 사랑하는 것은 꿀과 설탕물 같은 차이가 있는 사랑이다. 누가 꿀을 먹지, 설탕물을 먹겠느냐. 너희가 기도하고 감동받고 깨달아 감동으로 나를 사랑해 보아라.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 사랑이 영원히 가게 된다.

2. 나 예수를 앞에 두고 두 마음을 품고 나를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도 사랑했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했다가, 어느 때는 나도 사랑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다. 신의 자존심을 알고 그리 하는 것이냐. 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어찌 되는지 너희는 알아라. 내가 돌아서면 그때는 1000배 힘들다.

3. 자기가 좋아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내가 너무 아끼는 신부다.

4. 사랑이 끊어지면 모든 것도 끊어지게 된다. 사명도, 구원도, 천국도, 영원함도 모두 다 끊어진다. 늘 내 말을 외우고 새기고 살아라.

5. 사랑은 작동할 때는 불같고, 식으면 얼음 같다.

6. 남녀 사이도 처음에 사랑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평생 가듯이, 내 아버지와 사랑과 나와 사랑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영원히 가게 된다. 나를 중매하여라. 나를 멋있게 증거해 보아라. 네가 배우고 겪은 것을 확실히 증거해 보아라.

<2010년 7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사랑으로 모든 것을 표상한다. 사랑을 보고 심판도, 축복도 좌우하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2. 육적 사랑의 불이 뿜뿜 타도 인생 일생 중 청춘 한 때다. 더 하고 싶어도 육적 사랑은 한계 상황에 처하여 더 탈 것이 없다. 그러나 나와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은 영원히 타게 된다. 세상에서 육적 사랑을 다 불태우고 내게 오는 자는 마치 아침에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간 자가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실컷 놀고 오다가 나를 만난 격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며 산 자는 아침에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 길에 나를 만나 내가 같이 가서 온종일 둘이 놀다 오는 격이다.

3. 세상 어떤 것과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제1순위로 사랑하고 사는 자는 마치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 새 집을 지을 때 나를 만나, 거처지 없는 나를 맞아 나와 사랑하며 사는 자와 같다. 그러나 세상을 다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나를 만난 자는 자기가 사는 집이 오래 되어서 현 집이 되었을 때 나를 만난 자와 같다.

4. 네 마음도 행실도 새로워지고 거듭나 새 집을 짓고 나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5.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오직 나만 위해 사는 자는 어떤 과수원지기가 3년이나 기르고 가꾼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을 때 나를 만나 같이 따 먹고 즐기는 자와 같다. 그러나 세상을 다 즐기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나를 만난 자는 과일을 다 따 먹고 잡초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한 과일나무로 나를 만난 자와 같다. 그러니 만나도 실망 속에 나를 만난다. 배고픈데 열매 없는 나무 밑 잡초 밭에 앉아 있겠느냐. 자기가 즐길 것 다 즐기고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해그늘에 나를 만나 빈 그릇만 쳐다보고 있겠느냐. 그 누구같이 10대부터 나를 찾고 인생을 바쳐서 해야 내가 시간이 있는 고로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와 함께 희망 있게 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같이 못 하는 것이다. 너희 인생의 좋은 때를 세상을 위해, 너희를 위해 따 써 버리고 해그늘에 탄식하면서 내게 오면, 내가 너희 희망을 이루어 주고 싶어도 때가 다 가서 못 이루어 준다. 인생 일생도 그러하고, 하루해도 그러하다. 그래서 힘들어도 아침 일찍부터 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나와 함께 더 큰일을 하고, 너희 꿈을 이루려면 새벽부터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다.

6.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려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가 책임을 못 하여 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그 뜻을 이뤄야 되기에 다른 사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2010년 8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좋아서 도취되어 산다.
2.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가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 행하신 것은 사람이고, 만물이고 그 가치가 엄청나서 역사에 길이 남고 빛이 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사연이 얹혀 있는 것이 대 걸작품이다.
4. 나무도 그 지역의 기온이나 풍토의 한계를 벗어나서 크지 못하듯이 사람도 그러하다.
5. 주님이 주신 것은 걸작품이니 표가 나게 박물관의 보물같이 관리하여 주님을 증거해 주면서 소개하여라.

<2010년 8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새로운 것만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예전에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여 생각에서 잊고 관리하지 못하여 묻혀 있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새것을 발견한 것 같을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2. 주님이 귀히 주신 것을 모르면 평생 모르고 못 쓰고 죽는다.
3. 그 지역 환경 속에 그 환경에 의한 작품이다.
4. 한 가지만 작품으로 찾지 말고 여러 가지를 찾아 보아라. 하나님은 나무, 바위, 샘, 지역, 형상적, 형상 나무 등 여러 가지로 작품을 창조하셨다. 사람도 각자 개성대로 귀한 걸작의 인물이다.

<2010년 8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보물을 찾는 자가 주인이다.
2.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 속에서만 자연의 보물을 찾는다. 사람을 찾는 것도 그러하다.
3. 귀한 것에 눈과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못 찾는다.
4. 성전 안 분재 소나무도 귀한 것에 눈 뜨지 못했을 때는 분재 소나무가 뿌리를 박고 있는 바위만 보고 소나무는 베

어 없애려고 했다. 눈을 떠야 귀한 것을 알게 된다.

5. 육의 눈을 떠서 육의 세계 귀한 것을 찾아내어 기르고 관리하고 써야 하며, 영의 눈과 마음의 눈을 떠서 영의 세계 귀한 것을 찾아 써야 한다.

6. 영의 세계에서도 육의 세계에서도 주님이 제일 귀하시다. 주님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귀히 결정된다.

<2010년 8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자가 고생도 많이 하고, 고통도 많이 받고, 헛수고도 많이 하게 되고, 망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해를 많이 주기도 한다.

2. 하나님도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고 쓰면서도 모른다.

3.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쓰면서 귀한 것을 알기는 아는데, 조금 알거나 보통으로 알고 쓰니 기쁨과 보람도 보통으로 누리고, 얻는 것도 보통으로 얻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귀하게 알고 써야 100%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쓰게 된다. 또한 사람도, 그 어떤 것도 더 개발하고 만들어 빛나게 한다.

4.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귀하고 중하며 그다음으로 자기가 귀하고 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생들이 귀하고 중한 것을 알고, 만물들이 귀하고 중한 것을 알고 살면 된다.

5.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귀하고 중한 것을 알지만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조금만 사랑하고 산다. 사람은 아는 만큼 귀하고 중하게 여기며 산다.

<2010년 8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 홀로 사막길을 오래 가게 하시고 목이 타며 갇은 고통을 겪게 하신 후에 고향에 와서 샘도 파고 나무도 한없이 심게 하셨다.

2. 사막길을 가보지 않은 자는 샘을 파거나 나무를 심지 않는다.

3. 배고파 고생을 해 본 자가 음식이 귀한 것을 안다.

4. 병들어 아파 본 자가 건강이 귀한 것을 알고 생명같이 건강관리를 한다.

5. 실습이 교육이다.

6. 보여 주면서 마음에서 느끼게 해 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야 행하게 된다.

<2010년 8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관심 있는 곳은 작아도 크게 본다.

2. 금강산보다도 섭리사 자연성전을 더 크게 본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3. 작은 자라도 주님의 뜻이 있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 큰 자는 작은 자의 배경으로 쓰이게 된다.

4. 어떤 지역이 작아도 주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큰 지역보다도 더 크게 쓰인다. 큰 지역은 하나의 증거 지역과 배

경 지역으로 뜻 있는 곳을 조명해 주는 데 쓰인다.

<2010년 8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내 마음을 모르는 자는 내 마음이라는 구멍에 실이 꿰어지지 않는 자와 같다. 그러므로 나와 같이 심정 맞춰 일을 할 수 없다.
2. 내 심정을 모르고 기도하는 자는 100시간을 기도했어도 내 심정을 알고 1시간 동안 기도한 자만 못 하다.
3. 내 심정을 알고 나와 같이 한 것은 세상에서도 남아지고, 그것에 너에게도 영원히 유익을 준다.
4. 내 심정을 받으려면 작은 것도 내게 묻고 나와 같이 행하여라.
5. 내 원본을 보고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내 심정을 그대로 받는 것이 된다.
6. 내가 쓰는 글을 그대로 쓰고 내가 그리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듯, 내 심정을 그대로 받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자가 내 심정을 받은 자다.
7. 매일 매시간 어떤 일을 할 때 사사건건 이같이 해야 한다.

<2010년 8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식자는 알아도 못 하고 실천자는 모르고 행한다.
2. 지식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니 늘 배우기는 하는데 행하는 데 둔하고, 실천자는 행하는 데만 주력하니 나의 마음을 모르고 행한다.
3. 너희가 마음의 눈을 팔면 그 순간에 나는 다른 곳에 가 있다. 나는 신이다.
4. 절벽 길을 갈 때 한걸음, 한걸음 눈으로 꼭꼭 찍으면서 걸어가듯이, 삶의 길을 갈 때 마음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걸어가야 한다.
5. 대 우주의 눈은 태양이듯, 소 우주인 인생의 눈은 너의 육의 눈이 아니냐. 태양이 없으면 세상이 안 보이듯, 네 눈이 없으면 세상이 안 보이지 않느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내며 멀리 보는 눈이 있으니 네 마음의 눈이다. 빛으로 150억 년을 가도 못 가는 천국을 너희 마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다. 그렇게도 멀리 보는 마음의 눈인데, 어찌 네 옆에 있는 나를 못 보느냐. 내가 네 눈을 보지 못하게 가렸느냐. 육의 눈도 감으면 누가 있어도 안 보이듯이, 마음의 눈도 감으면 내가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
6. 육의 눈을 뜨는 데 정신을 쏟고 신경을 써야 떠지듯이, 마음의 눈을 뜨려면 역시 네 정신을 쏟고 신경을 써야 된다.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나의 심정과 통하고, 나의 말을 깨달아 듣게 되고, 내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기록하여 전하며 월명동을 개발하고 공사하듯 하면, 결국 너희 마음의 눈이 정상으로 떠져 소경을 면하게 된다.
2. 지체 장애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뇌로 전달하여 지체에 전하여도 마음만 느끼지, 행동은 못 한다. 나 예수가 머리가 되어 내 생각을 늘 네게 보내도 네가 지체 장애자같이 마음과 정신의 장애자이면 전달되지 못한다. 고로 기도하여 내 능력을 받고 고쳐야 한다. 고쳐야 내 생각을 전달받아 행할 수 있다. 고쳤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또 정신과 마

음과 영혼의 장애자가 되니 매일 행해야 된다.

3. 나 예수가 자기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내 듣기 거북하고 심정 상하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매일 행하여라. 나의 사랑도 관심도 공의롭고 영원하다.

4. 마음의 눈을 뜬 사명자로 내가 전한 내 말을 지켜 행하여 모두 불구의 눈도, 마음의 귀도, 혼도, 영의 몸도 고치고 건강해져라.

5. 후진하게 작동시켜 놓은 차를 운전하면 고정해 놓은 대로 평생 후진만 하게 되듯이, 마음도 올바르게 고치지 않고 행하면 연속 그 주관권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 고로 인생을 창조하고 아는 내게 배워라.

6. 오전에는 배우고 알고, 오후부터는 바로 행하여라.

<2010년 8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네게 말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말하고 주는 것을 받아도 몰라서 가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주편)

2. 내가 네게 한 말을 귀히 생각하여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잊으면 안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내게 간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게 되고, 얻어도 내가 준 것을 모르게 되고, 나와 같이 가치 있게 쓸 줄을 모른다. (주편)

3. “네가 누운 곳과 밟은 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내가 말로 약속한 것을 얻기 전에도 잊으면 안 되고, 얻은 후에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씀 때문에 얻게 되었으니 너와 네 후손들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며 써야 한다. 또 주신 자 때문에 쓰게 되었으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쓰면서 주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며 써야 된다. (주편)- 이것을 하지 못하면 주신 자와 교통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상 죽은 자들이 쓰는 격이 되고, 주신 것을 받은 자와 따르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진정한 사랑과 기쁨을 이루면서 쓰지 못하게 된다.

4. “네가 누운 곳과 밟은 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땅 문서와 같이 귀하다. 이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게 되고, 써도 가치를 모르게 되고, 주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여 사탄이 침범하게 되고, 인사탄이 빼앗아 가게 된다. 주신 자 하나님을 알고 매일 계속 증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것으로 알게 되고, 후손들도 그같이 알고 보통으로 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면 더 가치 있게 받고, 그렇게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쓰게 된다. - 하나님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계약 증서다. 그러므로 항상 약속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께 기도 하고 말하며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주신다.

5.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으면 약속한 귀한 증서를 잃어버린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약속한 것을 얻는 데 효력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때가 되면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약속받은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6.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잊으면 받아도 모르고, 그것을 받을 줄도 모르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필요 없는 수고를 하며 손해만 많이 보게 된다.

7.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꼭 주시니 약속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희망으로 살아야 된다.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땅에 눕게 되고 그 땅을 밟게 되었기에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

이다.

2.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약속하시고 주시는 것이다.

3. 하나님과 주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준 것보다 수천만 배 귀한 것이다. 사람을 통해 주실 때도 있으니 모두 받고 감사하며, 그것을 낙으로 삼고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써야 된다.

4. 하나님은 역사하실 앞날을 두고 중심자나 시대 표상자로 먼저 그 땅에 놓게 하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신다. 고로 그 땅에 먼저 놓고 그 땅을 먼저 밟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하시는 것이다.

5. 하나님과 주님은 먼저 약속하신다. 그다음에 약속을 받은 자가 기도하게 하시고, 조건을 세우게 하고,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만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주신다.

6. 하나님은 사랑하여 약속하시며, 그 약속으로 인하여 주시며, 주실 때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은밀히 알려 주신다.

7. 사람들도 먼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조건으로 삼아 얻을 것을 얻게 된다.

8.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것은 조건을 세우면 다 주신다.

<2010년 8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주님께 약속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신앙의 선조나 혈통의 선조가 조건을 세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에 그를 따르게 되면 그와 같이 얻게 되어 같이 쓰게 되는 것이다.

2.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중심자와 선조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한 것을 얻었기에 우리가 쓰고 누리는 것이다.

3. 현재에 우리가 주님께 받고 얻는 것도 이미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조건을 세우고 따르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받았어도 가치 있게 제대로 주님과 함께 쓸 수 있다.

4.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조건을 세우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받으니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받고 쓰면서도 가치 없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선조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갔기에 그 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것을 네 자손들이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이다. 고로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배워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신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조상들이 쓰던 귀한 유적품을 발견하는 격이다.

5. 현재 우리에게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어 받고 누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 후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주시어 받고 누리는 것이다.

<2010년 8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외갓집에 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 쫓기다가 밟은 땅이 있다. 그 땅은 루스 성이었다. 야곱은 거기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잤다. 그 땅을 떠날 때,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가 누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벧엘’로 지었다. 하나님께 약속 받은 땅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름이다. 야곱이 외갓집에서 조건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얻게 되어 가정과 민족을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다.

2.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에는 자녀가 없다고 했다. 아이를 낳을 때가 지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쯤 네 아네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좋아하며 그 말씀에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다. 결국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는 그 귀한 이삭이었다. 그 줄기에서 귀한 야곱이 나오고, 귀한 요셉이 나왔다. 그 신앙의 발판과 터전에서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온 인류에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였기에 얻게 된 것이다. 모두 이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후대까지 길이길이 남도록 지구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 당세만 생각하지 말고 받은 것을 귀히 여겨라.

3. 요셉은 꿈에 이집트 대국의 총리대신이 될 것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될 것을 약속 받았고, 조건을 세우고 그대로 되었다. 꿈으로도, 생시에도 약속을 받은 것이다.

4. 예수님은 세상 끝 날이 되면 재림한다고 2000년 전에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비하고 주를 맞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받게 된다.

5. 하나님도 주님도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행하신다. 그러나 받을 자가 준비한 대로 받게 된다. 그때가 가까웠든지, 멀었든지 꼭 예비하면서 기뻐하며 희망으로 기다려야 된다.

<2010년 8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도 큰 것도 늘 주님께 약속 받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2. 매일 약속 받고, 매일 행하고, 매일 얻고, 매일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
3. 약속 받지 않은 것을 막연히 기다리며 헛된 희망에 젖어 살지 말아라.
4.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때가 되면 꼭 주신다.
5. 과거에 약속 받은 것도 그 약속을 잊으면 받았어도 모른다.
6. 하나님과 주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때가 왔을 때 환난이나 전쟁이나 핍박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 이를 깨닫고 약속한 것을 늘 확인하고 깨달아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았든지, 사람을 받았든지, 그 어떤 것을 받았으면 더욱 빛나게 만들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수백 배 빛이 나고 가치 있게 된다.
2.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 말씀은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하나의 약속이 되기도 한다. 이를 실천할 때 큰 것을 이루고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
3.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다. 이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많은 생명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힘찬 생명의 말씀, 곧 천국 열쇠를 받는 특권자가 되었다.
4. “나를 따라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는 영원한 고통과 지옥을 벗어나 천국에 가게 된다.
5. “내게 와서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배운 자는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자가 되었다.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편) 내가 너를 지금껏 만들고 지금껏 쓰고 있다. - 주님께 내 고향 월명동에서 살게 되어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나를 만들고 써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만들고 쓰지 않았더라면 지금 월명동에서 안 산다. 잘 살려고 나갔다.” 말씀해 주셨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인생도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도, 월명동도 쓰니 수만 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셨다.

2. (주편) 누구든지 인생을 내게 온전히 맡겨야 평생 만들고 평생 쓴다. 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삶같이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3. (주편) 잠을 죽지 않을 만큼만 자라. - 새벽 12시 30분에 깼더니 너무 졸리고 아쉬웠다. 그래서 더 잤다. 다시 일어나니 새벽 2시 5분 전이었다. 그때 기도하니 주님은 “내가 너를 12시 반에 깨웠다.”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필요 없이 잠을 더 자는 것은 너와 나의 손해다.” 하셨다.

4. 감동과 깨달음은 다르다. ‘감동’이란, 마음이 동하는 것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슬퍼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들을 말한다. ‘깨달음’이란, 아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깨어 아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 먼저 감동이 오고, 그다음에 깨달음이 온다. 깨닫는 것은 감동을 받는 것보다 높은 단계로서 아는 단계를 말한다.

5.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하라 함이다. 우리가 먼저 말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때 해야 될 말씀을 해 주신다. 사람끼리도, 애인끼리도 상대방이 하는 말을 다 듣고 나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몇 마디 한다.

6.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게 하려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2010년 8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여라. 혼자 있으면서 대화도 못 하고, 이야기도 못 하고 살았을 때를 생각하여라. 혼자 있으면서 대화도 못 하고, 이야기도 못 하면 대화하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주님과도 그러하다.

2. 주님은 신이시라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 주님이 한마디, 열 마디, 오십 마디, 백 마디라도 해 주시니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면 주님은 더 많이 말씀해 주신다.

3. 주님이 말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오신다. 사람끼리도 말하고 싶어서 만나고, 애인끼리도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만난다. 전화를 걸 때도 말하고 싶은 자에게 건다. 주님과도 전화기가 필요 없다. 어디서든지 말하면 된다. 입으로 말하기 곤란할 때는 속으로 속닥거려도 주님은 다 들으신다. 주님은 말하고 싶어서 새벽에도 우리에게 오신다. 주님은 천리나 멀리 우리와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지만, 가까이에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서 오신다.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정성스레 말하는 것을 보러 오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 매달릴 때 듣고 도와주고 싶어서 오신다. 그러니 24시간 수시로 주님을 부르고 말해야 된다. 그러나 주님은 때를 따라 도적같이 오신다.

4. 처음에는 감동시키시고, 그다음에는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행하게 하신다.

<2010년 8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항상 신부인 우리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 먼저 말하고, 먼저 안아 주고,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신다. 마치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듯이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신부로서, 애인으로서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어린아이다.

2. 주님을 항상 먼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주님을 사귀지 못하고 주님의 애인이 되지 못한다. 이 비밀이 크고도 깊다.

모두 절대 사랑의 법이다.

3.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좋아하며 항상 매일 이같이 하는 자는 신앙이 죽지 않게 되고,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된다. 이는 휴거의 기본 원칙이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다.

4. 주님이 보다보다 안 될 때 먼저 사랑해 주시는데, 이런 자들 중에 주님의 사랑에 성공하는 자는 거의 없다. 이런 자는 주님과 살아도 마지못해 사는 자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정하신다.

5.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나 귀한 자라서 주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자는 사랑의 희귀종이다.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함정에 빠졌을 때 주님께 먼저 구해 달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면 주님은 영원히 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버리고 살아야 된다.

2.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일생동안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된다. 영의 법이 그렇다고 생각하며 주님을 먼저 사랑하여라.

3.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몸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이제 더는 줄 것이 없으시다. 받으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해 달라고 하면 서 있다가 가신다.

4. 모두 먼저 주님을 사랑해 보아라. 그리고 주님께 사랑해 달라고 하여라.

5. 남녀끼리도 서로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결국 같이 못 살고 헤어진다. 같이 살더라도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할 수 없이 만족 없이 그저 사는 처지다.

6. 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 비유컨대 씨앗을 가진 자가 먼저 땅에 씨를 뿌려야 땅이 씨를 품고 키우고 수백 배로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씨앗을 가진 자요, 주님은 땅과 같다. 고로 먼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주님은 수백 배의 사랑의 기적을 낳지 못하신다.

<2010년 8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우리가 행하는 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는다. 행하는 만큼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아니다. 고로 사랑도, 모든 것도 우리가 행하는 만큼 갚아 주신다.

2.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같이 저같이 다 해 주시면 공의를 측정할 수 없다. 모든 인생들이 행한 대로 받기에 누가 잘 되어도 원망할 수 없고, 못 되어 형벌을 받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3.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셨다.

4. 사막에 작두펌프가 있다. 땅속에는 물이 많아도 그냥은 물이 뿜어 올라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작두펌프 속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작두질을 하여 뿜어 올려야 물이 올라온다. 이와 같이 주님께 먼저 사랑을 드리고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의 시동이 걸린다. 인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이 시작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미 6000년 동안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 오셨다. 이제 우리가 하는 것만 남았다. (아래 참고 자료 있음.) <참고> 원형 그대로의 작두펌프입니다. ①먼저 물 한 바가지 부어 주고, ② 힘차게 작두질을 하여 저어 주면 ② 물이 샘솟아 올라와 이곳으로 나옵니다.

5. 지옥에 간 자들 중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지옥에 간 자들은 없다. 그 사랑을 받았어도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죽도록 믿고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먼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도 실상 형제와 같이 사는 것 같고, 친구와 같이 사는 것 같다. 애인과 같이 사는 것 같지 않다.

<2010년 8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가시나무가 처음에 클 때를 보면, 양상한 나무 기둥에서 가시만 다닥다닥 붙어 나기에 금방 가시나무인지 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크면 기둥에는 가시가 하나도 없고 매끈하다. 그래서 잡목같이 여기고 대한다. 그러나 윗가지에는 가시가 짝 떨어 있다. 악인도 오래되면 이와 같아서 악인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역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 끝난다.
2. 소나무가 짝 들어찬 산 여기저기에 가시나무와 각종 잡목들이 있어도 그 잎이 소나무에 가려서 모두 소나무같이 보인다. 하지만 한 나무씩 보고, 그 산을 벌목할 때는 다 구분이 된다. 악인들도 의인 속에 묻히면 모른다.
3. 가라지가 곡식 속에서 자라도 자랄 때는 곡식 취급을 받고 주인의 사랑을 받는다. 가라지는 곡식보다 뿌리가 강해서 퇴비를 많이 빨아먹고 잘 크다.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없으니 불에 태워진다. 악인도 의인 속에 그러하다.
4. 돌감나무와 돌포도나무는 아벨 자손을 말한 것이지, 가인과 악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 가인 족속은 가시나무다. 혹은 잡목, 느티나무, 참나무 등을 말한 것이다. 돌감나무와 돌포도나무는 참감나무와 참포도나무와 같은 질이라서 참감나무와 참포도나무에 접을 붙이면 살아서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감나무, 참포도나무다. 그 자손은 돌감나무, 돌포도나무로 그리스도와 일체 되면 부활되어 온전한 의인이 된다. 잡나무는 참감나무나 참포도나무에 접붙여도 죽는다.
5. 악은 결실하지 못하니 스스로 멸한다.

<2010년 8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가인이 주님 사랑받고 아벨 사랑받아서 자기가 가인인지 잘 모른다. 염소가 목자 사랑받고 양 속에 섞여 살아서 자기가 염소인지 잘 모른다. 목자는 한 마리씩 젖을 짜 봐서 알고, 젖의 맛을 보고 알고, 뿔을 보고 알고, 주인에게 성질 내는 것을 보고 알고, 털 보고 알고, 눈 보고도 안다. 이와 같이 악인이 의인 속에 섞여 있고 뒤덮여 있어도 안다. 양들이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한다.
2. 가라지는 자랄 때는 가라지인지 모른다. 열매 맺는 때가 되면 열매가 없으니 가라지인지 안다.
3. 가라지는 밭에서만 한세상으로 끝난다. 악인도 세상에서 한세상으로 끝난다. 그 후에는 영원한 세상 지옥으로 간다.
4. 택한 자 고욤나무(돌감나무)와 돌포도나무를 찾아와야 참감나무이고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열매 맺게 한다. 모르는 자는 참나무를 캐 오고, 느티나무를 캐 오고, 각종 잡목을 캐 오듯 그런 자들을 전도한다. 그러니 접붙여도 결국 참감나무, 참포도나무만 희생시키고 나간다.
5. 바다에서 잡을 고기만 잡아라. 배우고 분별하여라. 물뱀이나 잡아 오고, 불가사리나 잡아 오고, 해파리나 잡아 와서 탄 고기 잡아먹게 하지 말아라.

<2010년 8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만 악인의 씨인지 의인의 씨인지 아신다. 그러므로 기도해 보고 데려 와라. 숫자가 문제냐. 오소리, 늑대, 살쾡이는 수만 마리라도 사슴, 치타 한 마리만 못하다. 주님은 오직 신부만 흡수하신다. 가시나무 만 주에서 열매를 맺어도 사과나무 한 주에서 맺는 열매를 못 맺는다.
2. 가인 족속 중에서 보다 하늘 편과 세상 편으로 갈려 나간다.

3. 다리굴 응달을 곁에서 쳐다보면 푸른 밀림 같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큰 나무가 많지 않다. 거의 잡초와 침낭 풀이다. 하나님의 역사도 곁에서 보면 푸른 밀림 같으나 들어가 보면 오직 참된 생명들이 너무너무 적다.

4.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길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고로 이것을 미리 알고 배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캐 오지 말아라. 돈을 주고서라도 열매 맺는 나무를 사다 심고 기대하여라. 주님 앞에 생명들도 그러하다.

5. 하나님은 선과 악을 영원히 쪼개신다. 그 중에서 선을 찾아 하늘 편으로 세우신다.

<2010년 8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야곱은 그 시대 의인인 아벨들과 아벨 민족을 표상한 자였고, 에서는 그 시대 악인인 가인 편을 표상한 자였다. 가인 에서가 아벨 야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에서 자체의 운명도 좌우되었고, 에서 자손들의 운명도 좌우되었다. 의인의 표상이며 하늘 편의 표상인 야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야곱 자신과 그 후손들의 운명도 좌우되었다.

2. 어느 시대든지 보다 하늘 편이며 영적인 아벨과 보다 세상 편이며 육적인 가인이 존재하면서, 보다 육적인 가인 편이 보다 하늘 편인 아벨 편을 괴롭혀 왔다. 하나님은 가인 편을 멸하지 않으시고 존재시켜 오시며 선악을 나누셨다.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고 선과 악을 저울에 달듯이 하시며 보다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산 자들을 선 편 아벨이라 하였고, 보다 악한 행위로 육적으로 산 자들을 악 편 가인이라 하여 쪼개어 역사하셨다. 보다 세상과 육에 속한 가인 편은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살았으며, 자기 행위와 선조들의 악한 행위로 인하여 탕감과 형벌을 받고 살았다.

3. 아벨은 보다 영적이고, 가인은 보다 육적이다. 고로 가인은 육같이 섭리해 오고, 아벨은 영같이 섭리해 왔다.

4. 한 인생을 보더라도 육은 가인 격으로 세상의 주관을 받아 세상을 향하여 살려고 하고, 영은 아벨 격으로 하늘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한다.

5. 영성과 선으로 육성과 악을 누르고 다스리듯이, 아벨 편은 가인 편을 자기 영적 능력으로 사랑하면서 다스려야 된다.

6.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타락함으로 생기게 된 자다. 가인도, 아벨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나타났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의 영향을 받아 태어난 자로서 사탄 쪽에 해당되는 자였고,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났지만 보다 하늘 쪽 주관에 가까운 자였다. 고로 결국 쪼갠 것이다. 가인은 하와를 상징한 자다. 하와는 사탄의 꼬임을 받아 먼저 타락되었다. 그러고나서 아담과 타락되었다. 고로 가인은 사탄을 아버지로 하고 태어난 격이 되었고, 아벨은 아담으로 인하여 태어난 격이 되었다. 주님도 모르고 휩박하는 가인 족속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길 “너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라며 그 근본을 아시고 지적하셨다.

<2010년 8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더 좋고 이상적인 것을 찾고 얻으려는 희망을 잊고 살고 있다.

2.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을 해야 더 좋은 것, 더 좋은 환경을 얻을 수 있다.

3. 때가 되어 구시대에서 바라던 새로운 시대가 왔어도 이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한 땅, 한 시대에 살아도 구시대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다.

4. 사람들은 모두 한 땅, 한 시대에 섞여 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휩쓸려 그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5. 새로운 시대에 사는 자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자극도 받고, 생각도 달리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6. 월명동에 가더라도 온종일 푸른 잔디밭에서만 앉아 있다가 오면 한 곳만 보고 깨닫고 오게 된다. 그러나 돌 조경도가 보고, 소나무 산도가 보고, 왕바위도가 보고, 산책로도 가 보고, 수영도 해 보며 여러 곳을 가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를 보고 깨닫고 오게 된다. 똑같이 월명동에 가도 어떤 사람은 한두 곳만 가 보고 조금 알고 오고, 어떤 사람은 7~8 곳을 가 보고 그만큼 알고 온다. 이와 같이 섭리사 안에서도 하루를 살면서 5~6배 부지런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만 하고 마는 사람도 있다.

7. 부지런한 자는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에 부지런하며, 그에 따라 얻는다.

<2010년 8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산에서 노루나 산짐승을 보면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어떤 사람은 잡으려고 쫓아간다. 구경하는 자는 누구이며 쫓아가는 자는 누구이겠느냐.

2. 사냥꾼이 되어야 사냥하지, 구경꾼이 되면 평생 구경만 하고 끝난다.

3. 구경꾼과 일꾼 중에 누가 크냐.

4. 주님은 일꾼을 찾으신다.

5. 구경꾼은 타인이며, 일꾼은 주인이다.

6. 관광객은 객이요, 일꾼은 주인이다. 언제나 그러하다.

7. 월명동도 구경꾼 만 명이 지나가면 변화가 없다. 일꾼 한 명이 지나가면 그 날 변화가 일어난다. 신앙 세계에도 그러하다. 변화를 일으키는 자, 주님이 동행하는 자다. 그 일꾼이 있어야 시대가 변화되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변화가 일어난다.

8. 시대 중심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요 일꾼이다. 그들이 지나가야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부활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2010년 9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것인데 완성한 것으로 보는 자는 발전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2. 주님이 다 왔다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

3.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실력대로 목표물을 정하고 간다. 역시 어린아이다.

4. 인간 스스로 하면 유한한 세계다. 주님과 함께 하면 무한한 세계다.

5. 육적 세계에서는 영적 세계와 주님의 생각 세계의 끝을 볼 수 없다.

6. 인간은 토끼 사냥, 주님은 호랑이 사냥이다.

<2010년 9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더 수준을 높여 깊은 단계, 높은 단계, 첨단 단계로 가려면 세밀하게 작은 것을 느끼고 행해야 한다. 그래야 그 통로를 따라 가서 큰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지옥도 하수도 뚜껑만한 것 하나를 열고 들어가면 온 천지가 지옥이다.
2. 좁은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영원히 가도 끝이 나오지 않는 천국이 나온다.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큰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된다.
3. 성전 서편 낙타바위는 본래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나 작은 돌을 파내어 큰 바위가 된 것이다.
4. 작은 것을 볼 줄 모르는 자는 큰 것을 다 놓친다.
5. 바다에서 제일 큰 고래도 바다 위에서 보면 지느러미만 조금 보인다.
6. 지상의 거대한 대 역사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이 시작했다.
7. 구약역사도, 신약역사도, 재림역사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했다.
8. 하나님이 행하셔도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눈으로도 잘 보이지 않게 작게 시작하신다. 그러다가 점점 눈으로 다 보이지 않게 크게 행하신다.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조각하는 자는 조각에 미쳐야 제대로 조각을 하게 된다.
2. 돌과 나무와 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거기에 미치지 않고서는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고,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
3. 돌을 좋아하고 거기에 미쳐야 좋은 돌이 보이고, 나무와 물도 좋아하고 미쳐야 찾고 개발하여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4. 돌과 바위를 좋아하는 자는 돌과 바위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돌과 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돌과 바위같이 여기고 좋아하며 즐긴다. 이 같은 정신을 가져야 꿈을 정복한다.
5. 없는데 큰 것만 찾지 말고, 작은 것을 길러서 크게 만들어라.
6. 나무는 어렸을 때 바위 절벽에서 자랄 때부터 길러야 그 절벽에서 거목이 되어 살 수 있다. 큰 나무를 바위 절벽에 심어 살리기는 불가능하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주님 반석의 절벽에서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거목 인생 된다.

<2010년 9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한 물건이 있어도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한다. 고로 서로 얻고 즐기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개성으로 창조하시고 개성의 마음을 주시어 인간이 각자 좋아하는 것을 얻고 즐거워하게 창조하셨다.
2.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기쁨이요, 희락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내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 불법을 행한다.
3.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것이 희망이요, 낙이요, 기쁨이다.
4.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얻어야 그것을 얻더라도 보물같이 귀하게 여겨 고이 간직하고, 그

것으로 낙을 누리고 기뻐하며 가치 있게 쓰게 된다.

5. 주님은 뜻이 있는 것을 행하실 때 그것을 행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스스로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하여 그것에 미쳐 강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신다.

6. 어떤 사람이 쓰고 버린 것이라도 그것을 찾는 자는 보물같이 여긴다.

<2010년 9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천국에 가는 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낸 자와 같은 자다.

2. 천국에 가려면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고 살아야 된다. 주님을 사랑의 보화로 보고, 자기가 가진 소유 중에 최고의 재산인 '사랑'을 다 팔아 주님을 사야 된다. 주님이 천국이다. 자기 사랑을 딛 데 주지 않고 100% 주님께 투자해야 된다.

3.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는 말은 '천국 자체가 보화다. 천국은 영원한 세계의 보화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 근본을 말씀하신 것이다.

4. 천국을 사려면 천국에 가야 된다.

5.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는데, 밭은 우리 마음 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확대시키면 밭은 세상이다. 천국은 세상에 묻혀 있다. 세상 밭에 천국인 주님이 복음과 함께 묻혀 있다.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볼 때 천국복음시대다. 구약시대는 천국복음시대가 아니었다. 예수님 때부터 천국 문이 열렸다.

6.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공이시니 천국이기도 하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구원받아 그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소유하고 사는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다.

7. 지금 이 시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시대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주님의 재림 시대에 주님을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주님은 신랑으로 오시니 신부로서 예비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맞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한 자다.

8. 보화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알고 행하여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는 천국 보화를 차지한 자다.

9. 자기 소유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 인생에 속한 재물, 명예, 생각, 마음, 정신, 노력, 충성, 사랑, 젊음, 믿음, 재능, 소질들이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고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투자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순서가 있다. 첫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한다. 둘째, 이 시대를 쫓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고 온전한 신부의 몸과 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때가 되어 주님을 맞고 휴거되는 자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의 소유자가 된 자와 같다.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흔히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면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한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근본은 천국이며,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다. 나머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얻는 땅에 속한 보화로서 사람, 만물, 물질, 명예, 환경, 사명 등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2. 주님 택하시고 기르신 생명이 보화다. 이를 세상에서 발견했을 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정성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투자하여 그 생명을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자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다.

3. 주님이 세상에서 축복으로 주는 재물이나 각종 것들이 주를 위해 쓰는 데 보화가 된다.

4. 자기 특성, 재능, 소질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들이다. 이를 발견하면 전심을 다하여 투자하고 개발하여 자기의 귀한 소유로 삼는 것이다.

5. 주안에서 받은 달란트와 사명이 보화다.

<2010년 9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근본은 '천국'이다.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이 비싸고 귀한 것으로서 꼭 사서 얻어야 된다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다음에 육에 속한 것으로 주님 안에서 받는 보화를 말씀하신 것이다.

2. 밭의 보화를 꼭 발견해야 되듯 천국을 꼭 발견해야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보화가 숨겨진 밭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밭을 샀어도 그 밭을 가지고 농사나 짓고 말듯이 무가치하게 끝나고 만다. 고로 밭의 보화를 발견하듯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꼭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 보화가 되듯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천국 보화가 자기 것이 된다.

3.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듯이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여 천국을 사라.

4. 누구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게 되듯이 나와 내 아버지가 허락한 것도 너희 소유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얻게 된다.

5. 자기의 작은 소유와 많은 소유를 바꾸는 것이니 자기 것을 아까워하면 사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소유를 사면 된다.

6. 천하를 준다고 하여 자기 목숨을 내 주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천하를 얻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자기 생명을 얻은 자가 천하를 얻은 자요, 나를 얻은 자가 천하를 얻은 자다.

7.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면 많이 투자해야 된다.

<2010년 9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밭을 얻었는데 유익이나 보람이 없으면 얻은 자에게 기쁨이 없는 것이다. 고로 밭의 보화를 찾아내야 된다.

2. 밭을 샀으면 밭의 보화를 찾아내야 보람을 얻고, 그 소유로 기쁨이 온다. 사람에게도 각각 보화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려면 깊이 봐야 된다.

3.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 속에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온갖 보화들이 들어 있다.

4.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으니 자기 힘과 노력을 다해서 보화를 캐내야 된다.

5. 밭마다 숨겨진 보화가 다르다.

6. 밭을 사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이 아니다. 보화를 보고 산 것이다.

7. 제때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고, 제때 보화를 캐내야 자기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2010년 9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똑같은 밭을 보고도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
2. 어떤 자는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 놓고 밭에서 땀 흘리고 농사만 지으며 밭 잘 샀다고 자랑하면서 농부가 되어 산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는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캐낸다. 아는 자가 제 값을 주고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3. 밭에 감춰져 있는 한 가지 보화만 캐내도 그 밭 값을 빼는데, 이것을 모른다.
4. 밭을 사는 자는 보화를 보고 사는데, 밭을 파는 자는 밭만 보고 판다. 만일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값을 주고는 안 판다.
5.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선물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주어 사게 하신다.
6. 인간의 육은 밭이요, 영은 보화다. 정신과 마음도 보화다.
7.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는 마치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으나 밭에서 농사만 지으며 밭만 보고 사는 자와 똑같다.
8.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여 땅만 좋아하며 농사만 짓고 각종 곡식만을 보화로 알고 살아간다.

<2010년 9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지땅에 작품 보화가 많은데 묻혀 있다. 빼낼 것은 빼내야 된다. 주인은 안다.
2. 보화도 캐내서 가공해야 100배나 가치 있게 쓴다.
3. 보화를 가공하듯 나무는 물과 퇴비를 하여 키우고, 바위는 파내서 키우고, 샘은 파내서 찾아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만드는 것이다.
4. 만물의 보화를 인간 보화에 접목시켜 목에 걸고, 손가락에 끼우고, 손목에 차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5.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해야 한다.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하나님, 자기 성령님, 자기 예수님으로 만들어야 된다.
6. 하나님 보화는 면류관 같고, 예수님 보화는 시계 같고, 성령님 보화는 반지와 목걸이와 귀고리 같다. 꼭 걸고 다녀야 된다. 하나님은 상의 같고, 예수님은 하의 같고, 성령님은 속옷 같으니 꼭 같이 입고 빛내야 한다. 신발은 삼위의 신령한 신으로 신어야 한다.

<2010년 9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몸과 마음을 완전하게 갈고 닦지 않으면 자기 몸과 마음이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2. 가시는 작아도 상처를 주지만 윤이 나게 다듬은 통나무는 목을 찢어도 아프지 않다. 바늘은 날카롭고 뾰족한 칼이다. 날카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상처를 준다.

3. 마음과 말과 행실을 모두 닦고 깎아 마치 기름칠한 것처럼 매끄럽고 부드럽게 다듬어야 된다.

4. 죄가 있는 자는 마치 가시와 같다. 회개하면 마음이 물같이 부드러워진다. 주님 앞에 불순종은 무력의 행위와 같아서 마음이 파도처럼 거칠어진다. 주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 마음도 몸도 호수같이 부드러워진다. 마음을 다듬어라.

5. 육적으로 살 때 마음과 몸이 거칠어지고, 매끄러운 지팡이를 칼로 찍어 놓은 것 같이 된다.

<2010년 9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부드러운 양털은 만지고 싶으나 역센 염소털은 만지고 싶지 않다. 마음도 부드러워야 스치고 싶고 가까이 대하고 싶다.

2. 악한 자의 마음은 가시나무같이 찌르고 거칠어서 만질 수가 없다.

3. 옥토 밭에 가라지나 잡초가 나면 밭이 거칠어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각종 추악한 마음을 먹고 있든지 그같이 행하면 잡초 밭같이 거칠어진다.

4.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닦고 몸을 닦는 것이다.

5. 돌 같고, 거친 나무 같고, 거친 흙 같은 자기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이고 태워서 부활시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

<2010년 9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안 줘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받는 자가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받는 것이다.

2.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주의 뜻대로 쓰며 부지런히 뜻을 펴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매일 주시는 주님이시다. 받는 자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3. 무엇을 받으려 원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받기 위해 온갖 것을 행해야 된다.

4. 주님은 매일 주시지만 받는 자가 매일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알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충분한 조건을 세워야 된다.

5. 밤이든, 낮이든 조건을 세우면 주시는 주님이시다.

6.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찾고, 더 구하고, 더 뛰고, 더 생각하고, 더 듣고, 더 살피야 한다. 그래야 찾고 얻는 것이다.

7. (주 잠언)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심령의 기쁨을 주지 않으리라.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으리라.

8. (주 잠언) 내가 능력이 없어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돕도록 간구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울 마음이 있도록 나의 마음과 심정을 알아주고, 내가 돕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을 풀어 주어라.

<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자기 생활로 이기는 것이다. 자기 행실이 검이다.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기는 것이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2. 바람도 물도 얼마나 부드럽고 약한 것이냐. 생활 속에 물로 씻고 닦는데 얼마나 부드러우냐. 생활 속에 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비단에 비할 소냐. 어린아이 살결에 비할 소냐. 부드러운 물과 바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같이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철이냐. 군대냐. 포탄이냐. 다이아몬드냐. 물과 바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빨리 갈수록 강하다. 물도 바람도 빨리 가면 갈수록 강하고, 많이 가면 갈수록 강하다. 물과 바람이 빨리 강하게 간 곳은 철도, 돌도, 강한 군사도, 어떤 만물도 남아 있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드럽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는 이것들을 강하게 달리게 하고 많이 달리게 하여 인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며 쓰신다. 물과 같이 부드러워라. 바람같이 부드러워라. 그러나 급할 때는 바람같이 빠르게 하고, 물과 같이 빠르게 번개처럼 행하여라. 그러면 표적이 일어난다.

3. 네 마음이 물이다. 바람이다. 속도를 내어 빨리 할수록 급물살이다. 태풍이다. 거침없이 차고 나간다. 표적이다. 능력이다. 불가능이 없다. 미리 하는 것도 시간상 빨리 한 것이 되어 안 될 것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일어나고, 마치 태풍이 쓸고 가고 범람한 물결이 쓸고 간 것같이 깨끗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4.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심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다. 물과 바람같이 부드럽게 인간들을 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실 때는 속력을 내어 행하신다. 이와 같이 축복과 심판을 속도로 조종하신다.

5. 네 마음과 정신에서 태풍과 홍수가 일어난다.

6. 해야 될 일을 놓고 폭포수같이 급물살같이 속도를 내고 재촉하여 빨리 해야 한다. 바람같이 태풍같이 행해야 할 수 있다. 네 마음이 바람이다. 네 생각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강풍과 태풍이 되어 할 일을 하게 된다. 네 마음이 물이요, 네 생각과 정신이 급물살이며 폭포수다. 네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네 할 일을 하게 된다. 빨리 하고, 재촉하고, 서두르며 속도를 내야 거침없이 행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한다. 속히 행해야 능력이다. 표적이다.

7. 빨리 하는 것이 표적이다. 거기 빠져 행할 때 재촉하고 빨리 행하여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된다.

8. 거기에 빠져 빨리 행할 때 사탄도, 행악자도, 원수도 힐문하지 못한다. 태풍과 급물살을 막는다고 막아지겠느냐. 적이 네 앞에 언제까지 온다 생각하고 속력을 내어 산을 넘어가라.

9. 빨리 할 때 죽음도 피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도 물리치고, 나와 갈 길을 같이 가게 된다.

10. 동작을 빨리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요, 일찍부터 행하는 것도 빨리 하는 것이다. 가속도를 붙여 행하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빠른 구름을 타고 행하신다.

<2010년 9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나의 때가 되어 세상도 같이 빨라졌다. 빠른 이 시대에 빨리 하는 것만이 이루어진다.

2. 40km(100리/42.195km) 마라톤을 뛰는 자가 마지막 코스인 1km를 빨리 뛰지 못하면 순위가 뒤바뀐다. 나의 재림을 눈앞에 놓고 지금이 너희 신앙과 인생에서 그러한 때다.

3. 이 한 해의 남은 시간은 실상 마지막 코스다.

4. 느리게 한 자들 중에 승리한 자는 없다.

5. 누구보다 빨리 뛰는 자만이 항상 승리했다.

6. 느린 자도, 빨리 하는 자도 5배나 일찍부터 가면 빨리 달린 자보다 앞서 갈 수 있다.

7. 아무리 빨리 하는 자도 빠르기의 한계가 있다. 고로 지치지 않고 하려면 시간적으로 배나 일찍부터 행해야 한다. 그래야 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넉넉히 갈 수 있다.

8. 어떤 일이든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완성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쉬우나. 완성하지 못하고 작품을 전시하면 많은 자들이 보고 평가하게 되는데, 자기 기술과 실력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겠느냐. 고로 일찍 하고 빨리 하여라. 그래야 제 시간에 네 재능과 기술을 나타낼 수 있다.

9. 자기 기술과 재능을 모두 다하여 완성한 작품을 전시해 놓으면 청중이 몰려와서 볼 때 네 실력껏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 미련도 없다. 나 예수 앞에 너희 신앙 작품, 사랑 작품, 나를 맞는 작품, 내가 시킨 일 작품, 신부 작품을 가지고 와라. 너희 재능과 특성대로 충분히 발휘하려면 일찍부터 완성해 가지고 와라. 내가 공의롭게 평가하고, 그 공력대로 영원히 갚아 주리라.

10. 작든지 크든지 최선을 다한 작품과 완성한 작품을 크게 보고 평가할 것이다. 기술도 좋고 재능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자기 신앙 작품과 인생 작품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자는 정말 되지 말아라.

11. 나 예수는 눈으로 영원히 봐도 못 다 볼 만큼의 천국의 대결작품을 다 완성해 놓고 왔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그 작은 자기 인생 작품도 완성하지 못했느냐. 내가 너를 책망한다. 빨리 태풍처럼, 급물살처럼 하여라. 그 작품을 내 작품과 함께 놓고 영원히 보련다. 미완성은 안 된다. 천국은 완성한 것만 가지고 간다. 나를 향한 사랑 작품을 꼭 완성하고, 내가 시킨 일을 꼭 하여라. 땅에 있는 작품들도 완성하고,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신앙과 정신과 행위의 작품들도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신부의 모습을 완성하여라.

<2010년 9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빨리 해야 자기 특기와 재주와 소질과 재능을 발휘한다. 물론 나와 같이 해야 한다. 성지땅 나의 구상, 너희는 실천이 아니었느냐.

2. 해 놓은 것만 영원히 남아 있고, 생각만 한 것은 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고 없다. 고로 실천하라고 내가 보낸 자로 모범을 보이고 그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표상을 세워서 하니 모두 따라 행하여라.

3. 실천하면 날마다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동일한 그것만을 보게 된다.

4. 세상에 많고도 많은 작품이 있지만 자기를 위한 작품이거나 자기 민족을 위한 작품이라면 거기서 끝난다. 나 예수를 위한 작품이라면 나와 영원한 작품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내 것에만 내가 함께한다.

5. 때가 되리니 세상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바람과 물과 불로 어찌 되는지 너희는 지켜보아라.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속력을 내어 오고 있다.

6. 네 몸, 네 생각과 마음, 네 영을 아주 빛나는 영원한 작품으로, 천주적인 대결작품으로 만들어라. 이것만이 너를 위해 영원히 남아진다.

7. 모두 멋있고 놀랄 만한 작품들을 자기 사명대로 만들어 나를 희망차게 하여라. 내게 보여 주어라. 그래야 나도 보려고 너에게 간다. 늘 실망하는 것들만 보여 주려느냐.

8. 이 시대 너희 민족과 세계 모든 자들에게 보여 주어라.

9.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허무하게 끝날 것들과, 나와 내 아버지와 성령님이 별 관심도 없는 것들과, 어린아이와 같이 즐기는 것들과, 저 강 건너 사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모두 어린아이가 행하는 것들로 여기고, 너희는 영원한 것을 귀

히 여기며 행하여라. 내가 살았던 별 보잘 것 없는 삭막한 이스라엘 땅을 보아라. 환경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그것이 아니다.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나 예수가 거쳐 가서 그것을 보려고 모두 오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곳이기때 시대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들이 나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땅은 온 세계에서 더욱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곳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만큼 된 것이다.

10. 이 시대 마지막 때, 너희와 너희가 쓰는 것들이 대결작품들이다. 빨리 만들고 행하여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보게 하여라. 너희가 최고 걸작품이다. 그리고 너희가 쓰는 것들이 최고 걸작품이다.

11. 걸작품을 만드는 것에 빠지면 먹는 것, 자는 것, 환경도 다 잊고 거기 빠져 행하게 된다.

12. 나를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면 내게 물으면서 하여라. 내게 물으면 코치도 해 주고 구상도 해 주면서 같이 한다. 일만 하지 말고 내게 묻고 나와 같이 하자. 내가 천주의 걸작품을 만든 창조자가 아니냐. 내 맘에 맞게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만들어라. 네 인생을 마치 초상화 그리듯 세밀하게 만들어라.

13. 작은 것도 나와 함께 만든 것은 저 강 건너 빌딩과는 비교가 안 되게 영원한 값이 있다.

<2010년 9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책임이 생명이다.
2.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자기 책임을 다 하도록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를 받고 자기 책임을 하게 돕기만 하신다.
3. 자기 책임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책임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여라.” 하신 것이다.
4. 책임이 ‘생명의 노선’이다. 책임을 하지 않으면 끝이다.
5. 책임을 하는 것은 마치 추운 겨울에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추운 고통을 받게 된다.
6. 책임을 하는 자들은 각자 개성대로 방법만 다르지, 모두 힘들다.

<2010년 9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에겐 관련된 앞날에 대해 아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2.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어 알 수 있다.
3. 책임이란, 어떤 일이든지 100%가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4. 각자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의 책임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5. 책임을 한 자는 자기 목적지에 간 자다.

<2010년 9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는 자들은 책임을 한 자들이다. 고로 사망 지옥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이다.

2. 생명권에 와서도 생명권 세계에서 해야 될 책임을 하지 못하면 또 사망권의 주관을 받게 된다.
3. 잠깐 육신의 의식주를 위해 사는 것도 몸부림치면서 행해야 겨우 존재하며 산다. 하물며 영과 영원한 세계를 위해 책임을 하는 데는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는 책임을 하는 자를 늘 돕는다.
4. 육신에 속한 책임을 한 것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동안 쓰여지지만, 영을 위해 책임을 한 것은 영원히 쓰여진다.
5. 책임을 한 자는 산 자요, 책임을 못 한 자는 죽은 자다.
6. 죽은 자는 행해도 사망권에서 행하고, 산 자는 행해도 생명권에서 행한다. 살고서 행하여라.

<2010년 9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시대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만물들이 화가 났으니 태풍과 비와 지진과 추위와 더위와 화산 폭발 등이다.
2.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가 되면,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만물들까지 그를 싫어하며 적이 되어 행한다.
3. 뇌 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을 번개처럼 기록해야 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는 머리에 흰히 생각나기 때문에 뇌에 저장되어 있다 생각하고 순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 순간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끝난다. 비디오카메라에 화면이 잡혔을 때 그때 녹화하듯이, 순간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때 기록해야 한다.
4. 주님의 말씀은 보화다.
5. 주님의 신령한 말씀은 사랑하는 자와 같다. 손을 놓으면 사라진다. 그러므로 꼭꼭 기록하여라.
6. 주님의 말씀은 주님이시다.
7.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뇌에 담으면 마음에 총명하게 떠오른다.

<2010년 9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1시는 주님의 시간이고, 2시는 나의 시간이다.
2. 꿈에서 아쉽게 끝나면 생시에도 그러하다. 꿈에서 아쉽게 끝났는데 생시에는 그렇지 않으려면 생시에 아쉽지 않게 충만하게 실천해야 된다. 영계는 육신의 행위를 거울 속에 그대로 비춰 보는 것과 같다.
3. 자기 육신의 행위가 완전해야 자기 영도 완전해진다.
4.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 육신이 온전하게 행하면, 그 육신의 행위를 영이 그대로 흡수하여 영도 온전해진다.
5. 온전해야 온전함을 보인다.
6. 온전해야 온전한 영계로 가서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
7. 시간도 온전하게 주님의 시간으로 행해야 사탄이나 자기나 타인에게 시간을 뺏기지 않는다.
8. 욕이 성결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오직 주를 중심하여 행해야만 그 영도 똑같이 육신의 반응을 받아 영도 의로운 영이 된다.

9. 차원을 높이려면 자기 육신의 행위를 더 온전하게 해야 한다.

<2010년 9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망에 속한 영향들이 막아진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에 속한 영들에게 끌려 다닌다.
2. 평소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온전하고 귀하게 시간을 쓰지 않으면 흑암의 주관을 받고 살게 된다.
3. 기도할 때만 사탄 귀신들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말아라. 평소에 온전히 행하면 늘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생활할 때 온전한 행위로 사탄을 이겨야 한다. 사탄에게 아예 틈을 주지 않으면 사탄과 싸울 것도 없는 것이다. 완전함에 도전이다! 문제가 일어날 곳에 아예 가지 않으면 자기는 그 문제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격이다.
4. 원수라도 급물살에 떠내려가면 불쌍하지 않느냐.
5. 아무리 자기 원수라도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으로 가면 불쌍하지 않느냐. 내가 살려 줄 수 있다면 살려 줘야 된다. 그만큼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렸을 때는 주님을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기에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 컸을 때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2. 너희는 아직도 사랑을 다 배우지 못했고, 아직도 내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 (주편)
3. 참사랑이 없이는 주님과 가까이 살지 못한다.
4.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서 주를 좇아다녀야 주가 사랑하여 사랑에 쓰여지게 된다.
5.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자기가 사랑하고픈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좇아다녀야 사랑을 이루고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 본인이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평생 사랑해도 소용이 없다. 주님도 그와 같다.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에 성공한다.

<2010년 9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사랑이란, 끊이지 않는 관심이다. 보살핌이다. 늘 생각하는 마음이다. 언제나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진정 사랑한다면 나의 마음에 들도록 행하며 나의 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나의 마음과 같이 매순간 어떤 것이든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나의 손발이 되어 살아야 한다.
2. 나를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사랑하니 사랑의 문제가 생기고 표상도, 한계도 모르게 된다. 나를 제대로 사랑하여 사랑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그 사랑을 형제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다.
3.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여 나의 뜻을 버리고 간 길이 옆에서 볼 때는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도 본인 스스로는 나오기 힘들다. 사탄과 악령들이 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해 줘야 된다.
4. 내게 사랑을 다 준 자는 모든 것을 내게 준 자다.
5. 다른 것을 내게 다 주어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6. 누구든지 나를 향한 사랑빛이 무엇보다도 제일 찬란하게 빛난다.

<2010년 9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오늘 주님을 맞은 자가 내일 주님이 오시면 맞는다. 땅에서 육신과 영이 주님을 맞는 휴거를 한 자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이 주님을 맞아 휴거된다.

2. 오늘 해 놓은 자만 인정한다.

3. 오늘 하고 있는 자는 아직 '인정'과 '완성'이라는 도장을 주님께 받지 못한다. '과정'이라는 도장은 받게 된다. 주님은 해 놓은 것만 인정하시고 행하시니 태초 이후로 착오가 없으시다.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 모기가 에프킬라 통(해외 참고 :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모기약)만 본다고 도망가고 죽느냐. 뿔어대야 도망가고 죽는다. 이와 같이 '너'라는 에프킬라를 보고 사탄은 도망가지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 입으로 말씀을 뿔어대야 사탄이 도망가고 쓰러진다.

5. 하찮은 모기라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사람에게 계속 해를 준다. 마귀도 그러하다. 모든 행악자들도 그러하다.

<2010년 9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안 보이니 세상만 보이고 자기만 보이는 것이다.

2. 회개는 청산이다.

3. 남을 잘하게 하기보다 자기부터 잘해야 한다. 자기가 먼저 배우고 자기를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다.

4. 주님이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해도 자기의 중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주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 자기가 문제다.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받고,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받는 것이다.

5. 어렸을 때라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바치면, 주님은 그를 주님의 것으로 알고 기르신다.

<2010년 10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죄의 함정, 이성의 함정, 죽음의 함정에 빠지기 전에 마음과 정신을 쏟아 너와 형제들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을 살려라. 함정에 빠진 후에 거기서 끝나는 자들도 있고, 깨닫고 이끌면 따라오기도 하지만 10배나 더 힘들다. 함정에 빠지기 전에 몸부림쳐 구하자. 이것이 나의 방법이다.

2. 주님이 최고 위대하게 보는 자는 주님을 최고로 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항상 주님을 최우선으로 대하는 자다.

3. 행하는 자에게 천운이 돌아간다.

4. 마지막만큼은 절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끝나기 때문이다. 열 일 제치고, 먹고 입고 자는 것 다 끊고 그 기회를 잡아 행해야 한다.

<2010년 10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성령은 자기가 처음에 열심히 회개하고 간구하여 받았어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뜨거운 물이 식듯이 식는다. 만물의 이치와 같다.
2. 성령을 거울철의 어떤 따뜻한 물체를 받은 것이나 혹은 어떤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천모이며,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나 예수가 되기도 한다.
3. 성령님을 예전보다 못 하게 모시면 자동적으로 점점 멀어져 같이 계시지 않게 된다.
4. 손님이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반갑게 대하다가 점점 마음이 식어져 흐지부지 대하면 손님은 어느새 떠난다.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5. 성령을 축소시켜 비유하여 말하겠다. 자기 애인이 있는데 잘 대해 주지 못하여 멀리 떠나게 되었다. 떠나간 애인을 보며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같이 대하니 애인이 다시 왔다. 이에 기뻐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 애인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또 떠났다. 뜨겁게 사랑하며 대해 주지 않으니 멀리 떠나간 것이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떠나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함이 밀려왔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니 곤고했다. 이때는 처음보다 더 애인에게 잘못을 고하고, 회심하고, 더욱 뜨겁게 대해야 애인이 그 힘을 받고 오게 된다. 성령을 이같이 이해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성령을 너희 신랑 되는 나 예수라고 생각하여라. 삼위는 동일한 존재다. 물론 각 위로 존재한다. 성령은 어떤 선물같이 한 번 받으면 계속 옆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하는 대로 함께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너희 신랑인 나 예수다.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계속 네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네가 행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 성령이 지금도 너에게 뜨겁게 역사하는지 보아라.

<2010년 10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대하는 대로 어느 시대든지 운명이 좌우된다.
2. 표상자가 시대의 생명이다.
3. 그 시대 표상자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개인·가정·민족·세계와 그 시대를 판단하고 대하시며 화를 주거나 복을 주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사명자를 보내시고 항상 그의 몸을 쓰고 사람들과 통하며 일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5. 하나님이 보내신 표상자를 불신하고 막연히 하나님과 주님을 대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 행해야 한다.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표상자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사명자와 함께 행하신다. 그때 못 했으면 못 한 것이다.
2.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미움으로 대해 놓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소용없다.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불신하면 그 어떤 뜻도 이룰 수 없다. 오직 보낸 자를 통해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오셔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표상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다. 하나님과 주님은 표상자를 통해 행하신다.
3. 표상자는 전체를 대표한 자다. 그를 대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4. 아벨을 대하는 것을 보고 가인의 운명은 좌우되었다. 가인이 표상인 아벨을 제 맘대로 대해 놓고 하나님을 찾았으

나, 표상자 아벨을 죽인 행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다만 가인이 두려워하며 살려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창 4:15). 그때부터 가인은 삶의 지옥의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죽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므로 그가 가인 대신 7배나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

5. 항상 그 시대가 표상자를 대하는 대로 운명이 좌우된다.

<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누가 그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중심자냐. 시대 중심자는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중심자 아래 각종 사명자들을 두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한다.

2. 오직 구세주 예수님 한 분이시며, 중심자는 오직 예수님과 일체 되어 시대를 의논하며 행한다.

3. 왜 중심자라고 하는 것인가? 중심자만이 그 시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쥐고 있다. 중심자는 나무의 중심이요, 나머지는 그 나뭇가지와 같다.

4. 오직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중심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발과 몸으로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대로 쓰이는 자다.

<2010년 10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여자가 아무리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여자가 남자는 되지 못한다. 중심자가 아무리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해도 주님은 아니다. 영원한 신부 위치의 존재다. 다만 주님의 때에 따라 사명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2.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듯이, 사명자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행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3.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고, 예수님은 항상 메시아다.

4.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혼자 나타나면 자기가 주님이 되니, 혼자 나타나면 안 된다. 사명자는 주님이 늘 같이 나타나야 잘못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 중심이 되어 하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그 말이 주님이 되어 그 말대로만 하라는 것이다.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영체로서 육신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신다.

2. 주님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작고 큰 일들을 맡겨 일하신다. 그 일을 맡은 자가 하루에 10번, 50번, 100번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마음과 절대 일체 되어 일하지 않고, 일하다가 자기 중심으로 하면 주님은 떠나가신다.

3. 중심자는 그 시대 전체를 대표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 시대는 몰약과 육계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유로 거룩하게 만든 관유를 머리에 부어 예식을 행하셨다(출 30:22-33). 신약 시대는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셨다. 성약 시대는 사랑,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신다. 고로 주님 앞에 절대적인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에게 절대적인 시대 말씀을 주어 그 시대가 알게 하시고, 절대적인 성령의 표상자를 세워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를 표상으로 삼아 주님의 손발로 쓰신다.

4. 시대 표상자이며 중심자는 이미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 있고, 이미 시대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내정해 놓고 길러 오셔서 그 시대에 쓰신다.

<2010년 10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남의 생명도 자기 생명과 연관되어 있으니, 자기 생명을 귀히 보고 구하듯 구해야 된다. 깊이 보면 주님의 몸이다.
2. 영혼의 생명은 구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망으로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니 아는 자가 긍휼히 여기고 자기 애인 같이 구원해야 한다. 사망 지옥으로 가는 생명을 구원해 놓으면 그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고 살게 되니,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진 자도 영원히 그 공적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된다.
3. 생명을 사랑해야 구원하게 된다. 자기 생명이다. 구원하여라. 그냥 하나님께 가지 말고, 생명을 구해서 데리고 가야 한다.
4.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한 자를 축복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 구원에 대한 대가를 얻게 하신다. 주님도 애인을 구원했다고 하시며 영원히 기쁨으로 대해 주신다.
5. 생명은 누구든지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자의 것이 된다.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어려움에서 돕고, 늘 관리해야 한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살피는 그 자체가 기쁨과 축복으로서 대가를 받는 것이다. 주님은 생명을 구원한 자의 생명도 항상 지키시어 생명을 구해 준 축복을 주신다.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명은 죽기 전에 구해야 된다.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다. 영도 그같이 생각하고 구해야 된다. 고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하고 생명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한다.
2. 생명은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신경 써서 구원해야 된다. 생명을 구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님과 함께 구해야 된다.
3.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보고 기도하며 구하려 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할 생명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 또한 주님은 이런 자를 주님의 몸으로 쓰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그 생명을 구하게 하신다.
4. 자기 생명을 다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관리할 때까지 그 생명이 생명권에 존재한다.
5. 관리가 생명이다. 생명은 관리다.

<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생명을 관리할 줄 알아야 남의 생명도 관리할 수 있다.
2. 자기 생명을 관리하면서 생명 관리법을 배우고, 이 생명을 관리하면서 저 생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라.
3. 형제의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자기 생명도 관리하게 된다. 나무 관리, 꽃 관리, 집 관리, 정원 관리, 가축 관리, 곡식 관리, 음식 관리, 귀한 물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배우고 그와 같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도 관리하는 것이다.
4. 생명은 영혼이다. 육신이다. 고로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배우고,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관리해야 된다.
5. 생명은 제때 꼭 관리하지 않으면 그동안 관리했던 수고가 허사가 된다.
6. 특히 그 영혼이나 육신을 방해하는 사탄이나 사람을 주님과 함께 처리해 주어야 한다. 악한 자는 영경귀와 같고 마

귀는 밭의 가라지와 같고 가시나무와 같으니 뽑아내고, 불 지르고, 매고 가둡니다.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처음 생명을 사랑하고 신경 쓰며 생명에 관심을 갖고 희망을 쏟고 정성을 쏟듯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행해야 능히 생명을 구원한다.
2. 말씀을 철저히 심어 주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 자신이 깨닫게 하여 행하게 하고, 자신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행하게 하고, 자기 생명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다. 관리란, 그 생명이 주님과 일체 되어 사랑하며 살게 해 주는 것이다.
3. 영혼의 생명은 마치 화재가 난 집에 갇혀 있는 자 구하듯 빨리 구해야 되고, 물에 떠내려가는 자 구하듯 구해야 된다. 구해 놓은 후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완벽하게 해야 된다.
4. 물에 떠내려가는 자들이나 불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자기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기에 스스로 나오지 못한다. 밖에 있는 자가 구해야 된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생명을 구해야 된다.
5. 생명을 구한다고 구하는 것만 생각하고 급물살이나 불속에 뛰어 들지 말아라. 물에 밭줄을 던지고 불을 끄는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구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지 않게 된다.

<2010년 10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명은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매일 밥 먹고 이를 닦고 잠을 자듯이 생활화하여 관리해야 된다. 그러다가 크면 스스로 하니 보람이다.
2. 날마다 더 좋게 더 차원을 높이면서 관리해야 생명을 완전한 생명권에 갖다 놓게 된다.
3. 생명을 구원받은 자도 남의 생명을 구원하게 해 줘야 자기 생명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4. 생명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정신, 생각, 마음이 능력이다. 힘이다. 기구다. 고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담대하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관리하게 해야 한다. 기도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지혜와 능력이 온다.
6. 사랑이 능력이다. 표적이다. 사랑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행하게 된다. 행하면 사탄은 물러간다. 안 물러가도 결국 사탄이 패한다. 행하면 주님이 함께하시니 꼭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고로 끝까지!

<2010년 10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망권에 있는 생명도 주와 함께 구하려고 맘먹으면 구할 수 있다.
2. 생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 줘야 한다. 영적 관리는 육으로 못 한다. 기도하여 주님이 그 영을 영계에서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3. 관리는 감각이다. 영감이 올 때, 마음에 느낌이 올 때, 생각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즉시즉시 적극적으로 빨리 행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 생명이 할 일을 대신 해 주며 그를 위해 대신 살아 줘야 한다. 그 생명 대신 십자가를 져 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을 낳고 사망과 흑암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4. 생명을 관리하는 자는 관리할 사람의 심정, 마음, 정신, 생각을 알고 느껴야 한다. 항상 그 생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며 쳐다보고, 그 말을 들어 줘야 알고 느끼게 된다.

5. 생명을 말 못 하는 짐승이라 생각하고 항상 사랑과 선으로 대해야 한다. 힘들다고 놔 버리면 절벽에서 생명을 놔 버린 격이다.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세상을 다 버려도 자기 하나 버리지 않고 나 예수를 따라오면 아무 소용없다.
2. '세상을 다 버렸다'는 말은 '자기에게 매인 끈을 끊었다'는 것이다. '자기를 버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매인 것을 없앴다'는 것이다.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나 예수를 따라와야 완전히 따라오게 된다.
3.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나 예수의 말을 들어도 다 자기 생각으로 행한다. 자기를 버려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자기 스스로 하는 마음과 행동을 버려야 한다. 산토끼는 먹고 나면 도망간다.
4. 똑똑한 자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나 예수에게 붙어 살아남는다.

<2010년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나 육신의 한 세상에서 존재하려면 받기만 해도 안 되고 주기만 해도 안 된다. 주고 받는 사랑의 힘으로 존재한다. 마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의 작용과 같이 수수작용이다.
2. 말로만 하는 사랑은 말로만 하다가 결국 사랑에 굶주려 죽는 사랑으로 끝난다.
3. 주님 앞에는 사랑으로 단장해야 단장이 된다. 다른 것으로는 힘들어서 못 한다. 불타는 사랑의 힘으로 해야 그 어려운 사랑의 단장을 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여 사랑하기 위해 단장하니 사랑의 그 뜨거운 소망으로 하게 된다.
4. 주님이 최고 원하시는 사랑의 비밀이 이것이니,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 주는 것이다. 자기 식의 사랑, 자기 좋은 대로의 사랑은 자기 만족의 사랑으로 끝난다.
5. 사랑도 자기 성격대로 하게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야 주님의 사랑에 접붙여 일체 되는 사랑이 된다.
6. 자기 성격대로 사랑하는 사랑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랑은 마치 과일나무의 꽃 같은 사랑이라서 취할 수 없는 미완성된 사랑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사랑은 과일 같은 사랑이라서 먹고 취할 수 있는 완성되고 성장된 사랑이다.
7. 몸으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 몸도 마음도 뜨겁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을 주고 받아도 몸도 마음도 뜨겁다. '마음과 정신'도 '마음 몸, 정신 몸'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2010년 10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 앞에 절대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명을 못 한 만큼 사탄이 개입하여 인간을 유혹하고 해를 주어 구원이 이르지 못하게 했다.
2. 구원받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도 빛 가운데 속해 사는 자를 감히 유혹하지 못하고 해를 주지 못한다.
3. 인간이 사망의 함정에 빠져 있고, 죄의 깊은 계곡에 처해 있고, 사망의 세계에 있으니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본인이 의를 행함으로 한 걸음 나오는 것이 '구원'이다.

4. 인간은 죄로 인하여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주님께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였으니 구원자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온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몸이 되어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행해야만이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2010년 10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순금에 잡철이나 은이 들어 있을수록 금의 빛깔이 감소되어 금빛을 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한 행실을 하지 못하고,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못할수록 빛이 없어져 생명의 빛을 내지 못하게 된다.

2. 주님께 네 마음을 드러라. 온전히 드러라.

3.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께 몸을 드러 놓고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니 다시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몸을 자기중심으로 쓰게 된다.

4.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으면 몸도 그 마음을 따라 행함으로 절대적으로 주님을 중시하여 살아야 한다.

5.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는 좋아서 마음도 몸도 다 주었다가도 서로 멀어지고 헤어진다. 이는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행여 마음과 몸을 다 주었어도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며, 매일 매시간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도 감동되었을 때는 몸도 마음도 다 주고 주님을 중시하며 살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으로 행하게 된다. 마음과 몸을 다 드렸으면서도 또 마음이 변한 것이다. 고로 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러라. 주님께 세상을 다 드렸어도 자기 마음을 아주 다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살지 않으면 그 영에게는 온전한 영생이 없다.

<2010년 10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마음을 어떤 물건같이 주님께 아예 줘 버리면 주님이 절대적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 법에 따라 자신이 생존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몸도 운영을 한다. 고로 물건이나 돈처럼 주님께 드릴 수가 없다.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렸어도 자기 몸과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러니 살다보면 또 자기중심으로 흘러가 자기 마음과 몸을 쓰게 된다. 고로 자기 마음과 몸을 아예 주님께 맡겨야 한다. 비유컨대 애인에게 1억 원을 맡겼다고 하자. 그 돈을 애인에게 다 맡겨 버리면 자기가 1원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애인에게 허락을 받으나, 안 받으나 애인에게 돈을 다 줬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예 쓰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과 몸을 아예 주님께 맡겨라. 주님만이 마음과 몸의 주인이 되어 쓰게 하여라. 그러면 자기중심으로 흐르지 않는다.

2. 주님께 자기 마음을 100% 맡긴 자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임하여 그 육신을 주님의 것으로 쓰신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그 육신도 그에 따라 사니 주님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사는 자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 것이다.

3. 한 여자가 자기 마음을 한 남자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 여자는 온전히 그 남자의 것이요, 그 남자는 자기 마음을 그 여자의 마음에 다 담아서 그 몸을 통해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몸도 온전히 그 남자의 것이 된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데리고 사시려고 늘 불꽃같이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온종일 주님 말씀만 듣게 하시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온통 주님께 쏟게 하신다.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같이 살아야 한다. 이 심정을 정말 알고 행해야 한다.

4. 자기가 절대적으로 좋아서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다른 자에게 사랑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상대 기준이 되어 살아야 다른 이성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것에 빠지지 않는다.

5. 마음 주면 몸도 준다. 어떤 것에든지 마음을 빼앗기면 몸도 거기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긴다. 마음을 다스려라. 너의 마음이 너의 통솔자다. 항상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6. 절대로 입을 통해 마음 문을 열지 말아라.

<2010년 10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자기 이상형을 갖춘 자를 사랑하면 다른 자가 자기를 사랑해도 자기 이상형의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거나 물질이나 명예가 와도 자기 이상형인 주님과 모든 것을 비교하고 생각하며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들을 사랑해서 천국에 가겠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만이 천국에 간다. 그것들이 네가 꼭 죽을 곳에서 살려 주겠느냐? 못 한다. 그들이 주님보다도 더 해 주었느냐? 못 해 주었다. 그들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저 준 일이 있느냐? 없다. 그들과 그것들이 주님보다도 더 너를 사랑해 주었느냐? 못 했다. 이같이 비교하면서 살 때 절대 거기 안 빠진다. 물건도 비교하면서 사고 파는 것이다. 금을 은과 비교할 수 없고, 빌딩을 초가집과 비교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주님과도 그러하다.

2. 죄는 썩는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회개는 썩는 것을 없애는 것이다. 더러움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3. 세상에 예쁘고 아름다운 자도 더럽고 썩으면 시체 같다. 육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그 행위대로 실제로 더러운 것 그대로 보인다. 그 행위대로 냄새가 나고 썩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보인다. 그 육신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마치 몸에 각종 더러운 불순물들이 붙어 있는데 씻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잠시 후에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옷도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보다 깨끗한 옷을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육신으로는 별로 표 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육신의 반응을 자세히 보면 보인다. 육적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4. 깨끗해야 주님이 애인 품듯 품으시고 사랑의 역사를 하신다. 더러우면 청결 법에 의해 절대 주님과 접목될 수 없고 일체 될 수 없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가지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깨끗해야 된다.

[10-10-25]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자신을 못 본다. 주님의 빛 앞에 나오면 모두 드러나 선악간에 자신들의 행위가 보인다.

2.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가는 길이라도 슬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는 것이다.

3. 자기가 자기 인생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자기 정신과 생각이다. 자기 정신과 생각으로 자기 육신이 행하여 함께 빛을 발하는 것이다.

4. 자기 인생의 빛을 예수 안에서 발하지 못하면 어둠에서 살게 된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된다.

5. 하나님께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은 그 재능의 빛을 무한하게 발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육에 속한 삶, 즉 세상에 속한 삶의 빛만 발하면 육이 죽으면 육은 거기서 끝나고, 그 영혼은 영혼을 위해 빛을 발하지 못한 고로 빛이 없는 어둠과 사망과 죄악의 지옥으로 가게 된다.

2.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육신도 빛을 발하며 가치 있게 살고, 그 영도 자기 육신이 산 것같이 그 행위대로 하늘의 영체로 변화를 받아 빛을 발하며 육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다 때가 되어 육신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에 묻히고 끝나지만, 그 마음과 정신과 혼은 영에 흡수하여 빛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된다. 육은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계와 같다. 기계가 닳아 끝나면 그동안 기계가 만든 제품만 남아진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 기계가 숨이 끊어지면 그동안 육신이 행한 의는 마음, 정신, 혼과 함께 영에 흡수되고 일체 되어 영이 가지고 간다.

3. 육신의 몸은 마음, 정신, 생각, 혼의 그릇이다. 육신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믿고 그 뜻대로 살면 그 육신이 행한 것을 영이 그대로 받아 영은 하늘에 속한 의로운 영으로 덧입게 된다. 그러다 때가 되어 육신이 죽으면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 그것으로 끝나고, 그 마음과 정신과 혼은 영과 일체 되어 육신의 행위를 따라 천국으로, 혹은 낙원으로, 혹은 낙원 밑에 있는 지상영계로 가게 된다.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숨을 쉬며 살아 있는 동안에만 뇌가 작동하며 마음, 정신, 혼, 육이 작동한다. 숨이 멈춰 뇌의 작동이 끝나면 마음, 정신, 생각, 혼, 육의 작동도 멈춘다. 그러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썩는다. 정신, 마음, 생각, 혼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 영의 몸에 그대로 흡수된다. 영의 몸도 자기 몸이니 육의 몸이 죽으면 그같이 되는 것이다. 비유컨대, 뇌는 마치 육신을 운영하고 행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사람은 공장에서 만든 옷이나 물건들을 쓰면서, 그것으로 육신이 살아가고 존재한다. 이와 같다. 인간의 '뇌'라는 공장에서 마음, 생각, 정신으로 만들고 행한 것들을 '혼'이라는 뇌관을 통해 영에게 전달하면 영은 그것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살아간다.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마치 나무에 거름을 하면 열매가 그 거름을 빨아들여 크듯이 영도 뇌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만들고 행한 것들을 혼을 통해 전달받아 그것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살아간다. 영은 육의 복사판이다. 육의 마음, 정신, 생각, 혼이 영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선한 것은 선한 것 그대로, 악한 것은 악한 것 그대로 육의 마음, 정신, 생각, 혼이 영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고로 영은 육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있다. 따라서 육신, 정신, 마음, 생각이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면 영도 그대로 된다. 육신이 구원받아야 영도 구원받는다. 육과 영의 구원이다. 네 영혼이 잘되어야 육신이 잘 되고, 네 육이 주 안에서 잘되어야 영도 잘된다. '육신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다. 고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성을 죽이고 자기 육신을 주님 앞에 굴복시켰다. 고로 어떤 환난이 닥치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여 영도 자기 육신과 같이 승리하게 하였고 하늘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 천국에 가게 했다.

2. 사람이 키가 크든지 작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외모가 아름답든지 아름답지 않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 정신과 마음이 빛을 발하여 그에 따라 육신이 행해야 인생의 빛을 발할 수 있다.

<2010년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 하늘로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고, 땅으로부터 타고난 재능이 있고, 자신이 노력하고 만든 재능이 있다. 그 재능들을 그냥 쓰면 100개의 빛을 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과 일체 되어 쓰면 수만 배 인생의 빛을 발하면서 쓰게 되어 그 영혼이 그 가치와 영향을 몽땅 받아서 영원히 빛난 영으로 살게 된다.

2.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좋아하며 주님의 애인같이 살려면 마치 한 컵의 물을 주님의 마음 컵에 몽땅 쏟듯이 누구든지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을 향해 자기 마음을 쏟고 자기 사랑을 쏟고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는 인생 사랑의 성공을 한 자다. 영원한 성공자다.

3. 세상을 향해 살면 잠깐 한 때, 혹은 몇 년, 몇 십 년 동안 빛을 발할 뿐이다. 길면 인생 일생 빛을 발한다. 하늘을 향해 살면 육신도 땅에서 빛을 발하고 형통하고, 영도 그 정신과 행위로 인하여 빛을 받고 살아 구원을 받아 주님 품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된다.

4. 가만히 있으면 빛나지 않는다. 움직여야 빛난다. 행할수록 빛난다.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거기 해당되게 찬란하게, 혹은 약하게 빛이 난다.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을 빛나게 하여라.

2. 육을 통해 네 영을 빛나게 하여라.

3. 나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광명한 태양같이 네 인생 빛을 내게 된다.
4. 제때 행해야 찬란하게 제 빛이 난다.
5. 제때 하는 자가 주님과 일체 된 자다.
6. 시간의 빛을 발하여라. 시간을 돈같이 쓰고, 황금같이 쓰는 자는 시간의 빛을 발하는 자다.
7. 여러 가지 색깔의 무지개같이 빛을 발하여라. 그러면 많은 것이 조화를 이루어 신비한 삶을 살게 된다.

<2010년 10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잠재능력은 영적으로 개발해야 그 빛을 발하게 된다. 육적으로 행하면 아주 일부만 아깝게 행하여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없다.
2. 육적으로 영적으로 빛을 발해야 그 빛이 강하고 찬란하다.
3. 인간이 빛을 발할 것이 저마다 수백 가지가 넘는다. 자기 뇌에 저장되어 있는 재능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자기를 개발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음으로 자기 재능이 별경게 녹이 슬도록 놔두고 있다.
4. 젊었을 때 10대, 20대에 다 개발하여 빛을 발하면서 부지런히 써야 한다.
5. 누구든지 자기 특성과 재능의 빛을 발한다면 왜 의식주를 걱정하겠느냐.
6. 자기 정신이 돈이다. 물질이다. 육신이 돈과 명예와 각종 보화 덩어리다. 그러니 놀지 말고 늙기 전에 행하여라. 뇌와 몸은 가만히 놔두면 편한 것이 습관이 들어 놓고 자는 것만 좋아하여 무기력하게 된다.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뇌는 이른 새벽에 가장 총명하고, 기억력도 이상적이다. 뇌도 육체덩어리다. 어제의 삶으로 피곤했는데 육신이 자고 쉬고 안식하였기에 뇌의 활동이 최고로 좋을 때가 '새벽'이다. 이때 주님도 오신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너무 신경 쓰게 하여 뇌를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2.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루 삶에 시달려 뇌가 피곤하여 마음도 정신도 모든 생각도 흐려진 때를 벗어나 '새벽'에 찾아 오시고 부르신다. 그리고 저마다 원하는 시간을 내 주신다.
3. 좋은 시간을 뺏기고 나쁜 시간에 몸부림치지 말아라. 좋은 기회를 놓치고 힘든 때에 10배나 힘들게 하지 말아라.
4. 노는 만큼, 인생 막연히 지낸 만큼 자기가 뛰고 달려 그 계곡을 벗어 나와야 한다. 누가 자기 인생을 대신 살아 주느냐.

<2010년 11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인생 하루하루 매일이 1년 축소의 삶이다. 하루하루 아깝게 보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치 있고 멋있게 살아라.
2. 네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루를 승리한 날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 보아라. 그것이 연속되다가 인생 죽는 날을 맞게 된다.

3. 악한 길을 가다가 빨리 돌이킬수록 하루라도 빨리 선한 길로 간다.
4. 자기가 자기를 재촉하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하여라.
5. 자기를 구원해 놓고 인생을 써야 빛을 발하면서 쓰게 된다.
6. 자기를 구원해 놓지 않고 자기 인생을 쓰면 못 한다. 안 된다. 수고만 많이 하게 되고 효력도 없다.
7. 매일 더 차원을 높여 더 좋은 구원을 이루어야 더 빛을 발하게 된다.

<2010년 11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가르쳐 주어라. 한 번이 아니다. 수십 번씩 가르쳐 주어라. 그 일을 행하여 그 일이 끝날 때까지다.
2. 사물도 사람도 그때는 존재한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고 가다가 멈춘다. 그러므로 계속 관리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존재할 때까지다. 돌을 세워 놓으면 그때는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넘어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계속 관리다.
3. 열매는 끝에 연다.
4. 끝까지 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먹는다. 신비한 세계에 도착하게 된다.

<2010년 11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나 예수가 보니 모두 끝까지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쉽게 하고 끝난다. 나무를 키워 꽃향기나 맛고 끝나고, 또 열매를 먹어도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은 열매나 먹고 끝난다. 그렇게 아쉽게 끝나지 말고 끝까지 하여 꽃을 거쳐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키워 충실한 인생 열매를 먹고 살아라.
2. 만족, 충만, 나와 일체다.
3. 아쉽게 사는 인생은 감질만 나게 하는 인생이다. 내 마음과 속을 타게 하는 인생이다. 미련을 갖게 하는 인생이다. 미완성 인생이다. 이런 인생에게는 나 예수의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없다.
4. 완성해야 완전히 빛나고 절정의 맛을 본다. 초가을이나 완전한 가을이 오기 전에는 절정의 오색찬란한 단풍을 볼 수 없다.

<2010년 11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벌이 꽃의 꿀샘에서 먹이를 가져와 저장만 하면 바로 꿀이 되지 않는다. 처음 꽃에서 수집한 것은 주로 설탕성분이지만 벌의 소화효소로 성분이 바뀌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까지 끝까지 가야 완전한 꿀이 된다.
2. 과일 열매도, 곡식도 100이라는 단계까지 가야 완성된 과일이 되고 완성된 곡식이 되어 제 맛이 나고 제 영양을 다 갖게 되어 빛난다. 인생도 똑같다. 만물의 이치와 공통성이다.
3. 선 영계 - 낙원 영계 - 천국이 있다. 천국이 완성의 세계다.
4. 아쉽게 살아 미완성된 자들은 천국에는 못 간다. 완전하게, 만족하게, 충만하게 행하고 산 자만이 천국에 간다.
5. 나 예수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산 자가 아쉽게 살지 않고 완전하게, 만족하게, 충만하게 산 자다.

<2010년 11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사람들은 자기 기질, 재능, 자료가 다 있는데도 끝까지 만족하게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아쉽게 문턱에서 주저앉는다. 방까지 들어가야 된다.
2. 문턱을 넘어 방까지 들어와 너와 나만 만나는 장소까지 와라. 끝까지다. 만족하게다. 충만하게다. 완전하게다.
3. 새벽부터 천릿길을 달려 와 놓고서는 어떤 자는 대문밖에 서 있고, 어떤 자는 정원에 서 있고, 어떤 자는 응접실에 서 있고, 어떤 자는 방문 앞에 서 있고, 어떤 자는 방문턱에 서 있다. 끝까지 하고, 완전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여 방까지 들어와라. 그리고 나와 만나자.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에게 자기 심정을 털어놓고 속 이야기를 하면 속이 후련하고 풀린다. 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게 되기도 한다.
2.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자기 심정을 털어놓고 속 이야기를 하면 육도 마음도 영혼도 후련하고, 육에 속한 것도 얻고 영에 속한 것도 얻게 된다.
3. 사랑하는 자와 같이 살아도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랑의 맛을 잃고 산다.
4. 생각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것같이 맛을 느끼게 한다.

<2010년 11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생각의 동물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2.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만져도 못 느끼고, 먹어도 못 느낀다. 생각이 생명이다. 생각이 깊고 온전할수록 사랑해도 더 느끼고, 마음에 더 감동되고, 충격적인 반응을 받게 된다.
3.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입이시다. 한 눈이시다. 한 몸이시다. 삼위는 각위로 존재하시나 삼위일체로서 누가 말씀하셔도 동일한 진리요, 동일한 말씀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인생들을 생각하시고 쳐다보신다.
4. 어떤 존재 세계가 있어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봐도 못 느끼고 모른다. 생각의 눈으로 봐야 한다.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 실제 행하는 것’과 같다. 그 어떤 것이라도 육신이 행해야 얻어지듯이, 생각도 생각해야 얻어진다. 생각이 일하는 것이다. 정신은 생각하는 것이 일이다. 생각하여 얻어서 그것을 뇌에 저장하고, 육신이 그것을 행하면 얻어진다.
2. 육은 육으로 행하지만, 생각은 생각으로 행한다.
3. 100리 떨어진 곳에 어떤 것이 있으면 육신은 거기까지 가야 그것을 가져오게 되지만, 정신은 생각이 가서 어떤 사항과 일들을 가져오게 한다. 생각으로 가져와서 그것을 뇌에 저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가져오게 하려면 육신을 시켜 가져오게 한다. 생각은 실제 사항을 가지고 오고 답을 가지고 온다. 깊은 차원의 생각과 극치의 생각을 하면 생각의 정신파로 실제 사람이나 물건의 모습을 마음 화면에 보여 주기까지 한다. 이같이 생각은 신기하고 엄청난 일을 한

다. 하나님이 이같이 창조하셨다. 고로 생각을 놀리면 마치 중장비를 사 놓고 놀리는 것같이 손해다.

<2010년 11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 정신, 마음이다. '생각'이라는 존재는 형체 없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생각은 빛과 같고 전파와 같은 일을 하는 초능력의 존재다. 생각은 인간의 속사람인 영과 겉사람인 육의 매개체 역할을 해 준다. 생각은 물질세계에서 전파 역할을 하듯이 빛보다도 더 빠르게 번쩍이며 일을 한다.

2. 생각도 육에 속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

3. 육으로 하지 못할 때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 생각으로 하지 못할 때는 영으로 하면 된다. 생각은 영과 통한다. 영의 주관권 세계의 것은 영이 하게 하면 된다. 영은 그 형체가 실제로 육체같이 존재하며 영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영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영이 한계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은 영의 근본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간구하여 하면 된다.

4. 생각, 정신, 마음이라는 존재는 육신을 쓰고 육체를 움직여 육의 일을 하고, 혼을 통해 영을 쓰고 영체를 움직여 영의 일도 한다.

<2010년 11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과 마음은 육체의 주인이지만 영체의 주인은 아니다. 영체의 생각과 마음이 영체의 주인이다. 하지만 육과 영은 한 몸이라서 육에 속한 생각이 영에게 영향을 준다. 위를 통해 장에서 각 기관에 영양을 주듯이 혼을 통해 생각, 마음, 정신, 육의 행실을 영에게 공급해 준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이 통하듯이 육의 생각이 온전한 선이면 영이 그 생각을 흡수하여 영의 형체가 더욱 변화되게 하기도 한다.

2.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하고 육신으로 의를 행하면 육도 그 영향을 받아 유익하게 되고, 영도 마치 과일나무가 퇴비를 빨아들여 성장하고 변화를 받듯이 육신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을 하고 의를 행한 만큼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3. 육신이 선한 생각을 하고 그 마음과 몸이 일체 되어 의를 행하면 그 영은 그 영향을 다 받는다. 만일 육신이 악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면 그 영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영의 상태가 달라진다. 육이 진심으로 선을 생각하고 행하면 선한 영이 되고, 육이 악을 생각하고 행하면 악한 영이 된다. 육을 보면 그 영이 어느 영계, 어느 급에 사는 지 알 수 있다.

4.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의 뜻을 생각하여 육신이 그것을 행하게 해야 육신도 하나님 주관권에 살게 되고 영도 하나님 주관권에 속하게 된다.

<2010년 11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생각하는 것이 생각의 일이다. 가령 시를 쓰게 하려면 생각이 먼저 시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생각으로 시를 만들어 머리에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손으로 써 내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 작품이 만들어진다. 시를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한 편의 시도 쓰지 못한다.

2.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마치 육신이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다. 고로 행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3. 생각은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활동하고 일하면서 구상하고 얻어낸다.

4. 자기 생각이 항상 전능자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어야 그 생각에 주님의 생각이 들어가 주님이 생각한 것을 생각하여 육신이 그것을 써 내게 하고 행하게 한다. 주님과 생각이 일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

게 된다.

5. 욕신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함정에 빠지듯이 생각도 잘못 하면 함정에 빠지게 된다. 욕신이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정신과 생각도 함정에 빠지면 스스로 나오지 못하니 그에 합당한 자나 메시아 예수님께 간구하여 영의 근본자이시며 정신세계 생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하여 나오게 해야 한다.

<2010년 11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글씨가 작아도 인쇄체같이 정확히 써 놓으면 누구든지 잘 알아보지만, 글씨를 크게 써도 제대로 써 놓지 않으면 몰라본다. 생각도 온전하게 해 놓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욕신이 실천하게 해야 욕신이 헛되게 고생하지 않고 희망으로 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 때문에 욕신만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2. 신령한 생각, 온전한 생각, 영원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욕이 행하게 하여 생각도 천국이 되고, 욕신도 유익이 되고, 영도 영원히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

3.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깊이 수십 번씩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과 더 높은 차원의 이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글도 더 좋게 쓰려고 한 번 더 쓰고, 두 번 더 쓰고, 열 번 더 쓰면 전보다 훨씬 좋게 써진다.

4. 월명동 야심작같이 다시 쌓을수록 더 좋고 이상적이며 절정에 도달하게 쌓듯이 생각도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생각 위에 다시 생각하면 그와 같다.

5. 생각한 것이 하나님적, 예수님적, 성령님적 차원의 생각이 된다면 최고다. 만족이다. 절정이다. 정상이다. 꼭지다. 핵이다.

<2010년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니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만 오도록 하나님과 주님 생각의 그릇이 되어 주어야 한다.

2. 인간의 생각과 동물의 생각이 차이가 있고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차이가 있고 다르다.

3. 어떤 것은 욕신이 행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는 일도 있다. 생각으로만 하는 의의 공적도 있다. 온종일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자. 욕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그와 같은 생각만 했어도 그 의가 해처럼 빛나 영혼까지 미쳐 그 생각을 상실하지 않으면 그 의가 영원히 간다. 알지 못하면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썩어 버리게 한다.

4. 무엇을 하든지 온종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 받으며 살아라.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녹슬고 썩어 그 욕의 삶도 썩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영도 썩고 있다.

<2010년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가만히 두는 자는 게으른 자다. 게으름이 극치에 도달하면 코도 풀지 않고 그냥 흐르게 두고, 입속의 가래도 내뱉지 않고 그대로 둔다.

2. 생각은 마치 육체와 같다. 욕의 몸도 운동해 버릇 하지 않고, 자꾸 행해 버릇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 버려 기능이 아주 마비되다시피 한다. 고로 어떤 것을 해도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몸의 근육이 땅겨 아파서 안 하게 된다. 생각, 마음, 정신도 이와 똑같다. 고로 생각을 가만히 두면 정신 마디가 점점 굳어 들어간다. 정신이 무기력해지고, 마비되고, 흐리멍덩해지고, 혼돈되고, 마치 풍선이나 공에 바람이 빠진 것 같아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매일 운동하듯, 매일 할 일을 행하듯 정신도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날마다 정신과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 높은 산을 오르는 자가 처음에는 100m까지 오르고, 그다음에는 500m, 그다음에는 1000m, 그다음에는 2000m, 그 다음에는 3000m 점점 차원을 높여 오르듯 해야 한다. 정신은 육보다 무한한 활동을 한다. 정신 차리고 집중하는 만큼 얻게 된다. 아무리 육신의 기능이 뛰어난 자라도 생각을 거둬서 정신이 활동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2010년 11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과 정신이 지상세계 생각만 하면 지상세계 차원의 것만 알게 된다. 영계의 것, 낙원의 것, 천국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찾으면 무한한 세계의 것을 알게 된다. 그 생각으로 인하여 육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한 것을 실천하면 육신도 무한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놀란다.
2.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괜히 허탄한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육신에게 필요 없는 일을 시키고 고통을 주며 육신을 고생시킨다.
3. 인생이 자기를 창조하고 사랑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4. 그 시간에 하나님과 주님을 생각하면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고민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받지 않는다.
5. 최고의 생각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는 것이다.
6. 주님 앞에 돈이나 명예나 주권으로 행한다면 하고픈 마음이 있어도 하기 어렵다. 누구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랑으로 하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다.

<2010년 11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꾸 몸을 움직이며 더 새롭게 하듯이 생각도 자꾸 생각하며 더 새롭게 차원 높게 움직여야 한다.
2. 생각을 반복하면 그것이 머리에서 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두 번만 생각하면 곧 잊어버린다. 더 좋은 것을 얻고 변화를 얻으려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움직임이다.
3. 노래만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거나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더 눈이 끌리고, 마음에 감동 되고, 느낌이 온다. 입으로 노래하는 것만으로는 자기의 생각과 예술적 재능을 표현하지 못한다. 자기의 생각과 예술적 재능을 더 표현하기 위해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각종 동작을 하고 춤을 추게 된 것이다.
4. 곡을 몸으로 재현하듯, 생각을 몸으로 재현하여 행해야 한다.

<2010년 11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니 자기 매력이 없어지고, 자기 무한한 잠재능력이 잠자게 되고, 자기 재능이 자꾸 늙어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2. 생각은 생각을 해야 생각이 작동되어 가동된다. 고로 얻게 된다.
3. 생각과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물과 같아서 어디로든지 흘러간다. 정신 차리고 정신을 꼭 잡고 다스려야 한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한 후에 그제야 1차, 2차 생각하며 행해야 한다. 생각과 실재는 다르기 때문이다.
4. 생각은 마음의 방향을 잡아 주고 일을 만들어 마음에 전달한다. 그러면 마음은 육신이 그 생각을 행하도록 지시한다.

5. 인생,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겨워서 못 산다.

6. 좋은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자꾸 좋은 것을 얻게 된다.

<2010년 11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자녀나 애인은 미쳤어도 좋아하고 사랑한다.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주님도 부모와 애인 입장에서 우리를 대하시기에 타인의 대함과 다르다. 고로 하나님과 주님 앞에 가야 산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야 산다.

2. 하나님과 주님이 항상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심을 깨달아라. 탄 데 가면 못 살아도 주님 앞에 가면 산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야 산다.

3. 다른 사람은 못 살려도 주님은 살리신다. 주님 것이고, 주님이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것이라서 살린다.

4.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자만이 살린다.

5. 전도자가 살리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자가 살린다.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에게는 죽는 바가 되었어도 주님에게는 산 바가 된다.

2. 우리 인생들도 주님에게 가야만 산다. 다른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니 못 살리고, 근본자가 아니니 못 살린다.

3. 타인은 응급치료자요, 자기 애인이나 부모는 살리는 의사이며 치료하는 근본자다. 주님은 우리 영과 육의 사랑의 근본자이시므로 우리 영과 육을 근본으로 치료하신다.

4. 우리는 신앙이나 모든 것의 응급치료자요, 주님은 근본이 살 때까지 치료하시는 근본자이시다.

<2010년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와 애인 관계이기에 타인과 대하는 것도 다르고, 치료하는 것도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해 주는 것도 다르고, 책망하는 것도 다르고, 심판하는 것도 다르다.

2.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애인이다. 주인과 애인은 대하는 것도 다르고 해 주는 것도 다르다. 고로 주인이 해야 된다. 애인이 해야 된다. 주님이 해야 된다.

3. 사명자는 그 일의 주인이요, 애인이다. 그가 해야 된다.

4. 주인이 되고 애인이 되어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

5. 아무리 해 주어도 살려고 하는 자가 주님을 벗어나고, 애인을 벗어나고, 부모를 벗어나면 못 산다.

<2010년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먼저 주인이며 애인이신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 주인 되고 애인 되어 영도 육도 죽을 자

들을 살리게 된다.

2. 주님은 우리같이 한계선의 주인이 아니시다. 한계선의 사랑의 주인이 아니시다. 영과 육의 근본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주인이시다.

3. 우리는 세입자로서 전셋집에 사는 주인이요, 하나님과 주님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꾸민 집 주인이시다. 사랑도 모든 것도 그러하다. 전세 사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다. 다만 세입자로서 주인이다. 세입자는 집을 위해 큰 일을 못한다. 세입자는 그저 작은 고장이 나면 고치고, 자기를 위해 집을 꾸미고 살다 갈 뿐 큰 일은 못 한다. 주님은 주인 입장에서 집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온전히 행하신다. 고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 해 달라고 해야 한다.

4. 주님은 영원히 집이나 땅이나 모든 것을 인간에게 팔지 않으신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될 때 그제야 주인같이 쓰게 된다.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의 애인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면 주님의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 주인으로서 영육의 것들을 쓰게 된다.

2. 어떤 사람이 큰 건물과 농장지를 가지고 있다 하자. 그 사람의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일해 준다고 그 빌딩과 농장을 주지 않는다. 한 여자가 몸도 맘도 다 주고 그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결혼하고 한 몸 되어야 주인 되어 같이 쓰게 한다. 이와 같이 주님도 그러하시다.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며 그 일을 해도 하늘나라와 주님이 것들을 주지 않으신다. 오직 주님의 것이 되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늘나라와 주님의 것들을 주인같이 쓰게 하시고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사랑하게 하신다.

3. 자기 몸도, 마음도, 영도, 사랑도 온전히 주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 편이 되어 쓰임 받는 하나의 일꾼이 되지 않는다. 몸과 몸이요, 마음과 마음이요, 영과 영이요, 사랑과 사랑이다.

4. 우리가 주님 것이 되어야 주님 것이 우리 것이 된다.

<2010년 11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빗나간 신앙인과 빗나간 종교는 오래 못 간다. 영계에 가 보면 그들의 영혼은 자기가 생각한 곳에 가 있지 못하고, 생각과는 다른 빗나간 곳에 가 있다.

2. 화살을 쏘는 자가 빗나가게 쏘는데 화살이 빗나간 곳에 있지, 과녁판에 있겠느냐.

3. 세상에서 빗나간 신앙의 삶을 산 자들의 영혼은 그 빗나간 삶대로 천국이나 낙원의 과녁판에 가 있지 못하고, 그 행위대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급의 위치에 가 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산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다. 그다음 낙원 - 선영계 - 그 외의 지상영계 - 음부 - 지옥 순으로 세상에서 빗나간 삶을 산 만큼 그 영혼은 점점 천국과 낙원과 먼 곳으로 가서 살고 있다.

5. 오직 주인만이,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빗나가지 않고 좁은 길을 따라 온전한 주님 주관권에서 살고 있다.

6.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살린다.

7. 돈과 물질과 명예에 미치면 그 주관권에서 죽는다. 신앙에 미쳐야 영혼을 살린다.

<2010년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눈이 가야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야 눈이 간다. 주님께 나아갈 때 시선 집중, 마음 집중해야 주님께 가진다. 지상에서 자기 정신이나 마음이 영계에 가려면 집중해야 육계의 주관권을 벗어나 영계에 가진다.

2. 사람이 의식하는 것에 따라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3. 나 예수는 너희 눈물을 닦아 주건만, 내 눈물과 심정을 닦아 주는 자 없구나. (주님은 각 사람에게 한탄하신다.)

4. 소경이 더듬어 찾듯이, 영적 소경들도 더듬어서 찾아야 주님이 손에 잡힌다.

<2010년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항상 역사의 문을 열 때 한 사람으로 연다. 이 시대 신부시대도 시대 주님의 신부 한 사람으로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로 말미암아 모두 그같이 배우고 행하여 신부로서 조건을 세우고 예비하여 시대 신부의 문을 여는 것이다.

2. 전도도 시대에 따라, 그 시대 하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 지금은 하늘 신부 시대다. 자신부터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의 신부가 될 자를 전도해야 전도가 잘된다. 물건도 제때에 맞게 만들어야 잘 팔리듯 전도 역시 그러하다.

3. 시간이 더 걸려도 시대에 맞는 자를 전도해야 그 시대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하여 시대의 뜻을 빨리 이루게 된다.

4. 네 생각대로 없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시대에 택하신 자를 찾아보아라. 생명을 보화 찾듯 찾아야 찾는다. 생명이 영원한 보화다.

5. 각각 자기가 처한 곳에 예비한 자가 있다. 찾아라. 구석구석 거미줄 치듯 행하는 것이다.

<2010년 12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 주관과 자기 틀에서 갇혀 산다. 창살 없는 감옥의 삶을 사는 것이다.

2. 자기 배경과 자기 인성이 자기 자신을 묶어 놓았는데, 사람은 자유를 찾는다. 이를 아는 자가 기도해 주고 이끌어 내야 한다.

3.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알아야 주님이 육신이 있는 자같이 그와 함께하시며 역사하신다.

4. 어느 곳을 가도, 누구를 만나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옆에 계심을 확실히 믿고 행하는 자는 담대하게 된다. 주님이 옆에 있음을 의식하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두고 있음을 믿어라. 그래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 지혜와 지식도 받게 되고 주님과 통하게 된다.

<2010년 12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만나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만나려면 절대적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문을 연속하여 끝까지 두드려야 된다.

2. 주님은 사랑의 문 뒤에서 만나기를 몇 년씩, 몇 십 년씩 심히도 기다리셨다. 그런데 왜 그 문이 안 열리는가? 두드리는 자가 더 깊이, 더 차원 높이 더 두드려야 한다.

3.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면 영의 평온과 마음의 평온이 충만하여 마음에서 걱정과 염려와 초조함이 사라진다. 어느 때는 영의 눈을 떠 주님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이 안 보이셔도 마음으로 느껴 보고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4.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주님과 통하여 그 마음이 이해되고, 마음이 이리저리 얽힌 것들이 풀어지고, 마치 어떤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것이 풀어지듯 기쁘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2010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감각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 더 약하게, 혹은 더 강하게, 혹은 더 부드럽게, 혹은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 정신 감각과 행실 감각을 모르고 무리하게 하면 깨진다. 꺾인다. 될 것이 안 된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감각을 몰라서 못 하여 안 된다.

2.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도 세상 쪽 생각을 많이 하면 주님의 감각이 무뎌져서 마치 안개 속의 물체를 보는 듯 하여 주님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맛을 온전히 느끼려면 그 음식만 먹어야 한다. 입속에 2가지, 3가지 음식을 물고 있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그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오직 주님만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주님의 생각을 알고 분별한다.

3.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주님도 그러하시다.

<2010년 12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웃는 모습으로 찍어 보낸 사진만 보고 그 생명을 관리하면 안 된다. 그가 실제 삶 속에서는 고통 속에 있어도 사진은 웃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2. 수시로 교통해야 알 수 있다.

3. 잘 있다 해도 사람은 지도자에게 자기 약점을 안 보이려 숨긴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쓰러지고 넘어가 버린다.

4. 관리할 때는 그 생명이 처음처럼 잘 있는지 보고, 처음같이 있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점점 더 이상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5. 처음처럼 있는지 보고, 처음처럼 있지 않고 변한 자는 관리해야 될 생명이다.

6. 지도자는 친하면 친할수록 자기 옆에 있는 자를 관리해 줘야 된다.

<2010년 12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자기 얼굴과 몸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못하면 수술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쳐 아름답게 한다. 자기 영혼은 자기 육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극치의 아름다움으로 고치고 만든다. 과거에 살던 집을 그렇게도 그리워하며 뜯고 없애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싫어하던 자도 빛나는 새 집을 짓고 살면 옛 집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면 과거 자기 육신의 모습을 옛날 초가집처럼 여기고 생각하기 싫어한다. 육의 세계에서 육체를 중심으로 살 때는 육체의 형상과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그러나 더 좋은 세계인 영의 세계로 가면 육체의 모습은 생각도 안 난다. 영은 육의 모습과 비교할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은 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가면 육의 모습이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난다.

2. 육체는 육의 세계에서 육체로서 만족하고 영체는 영의 세계에서 영체로서 만족하며 살게 창조하셨다.

<2010년 12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생명을 정말 사랑해야 자기 영을 사망,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뺏기지 않는다. 자기 영을 원수 사탄한테 뺏긴 자는 영원히 억울한 고통을 받는다.
2. 육신세계 삶에 빠져 육체만 가꾸고 좋아하면서 거기 빠져 살면, 영원한 영은 육신의 정신과 마음과 혼과 함께 사망으로 가게 된다.
3. 하루살이 같은 인생들인데,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그제야 허무함을 느끼고 깨닫고 한탄한다. 참으로 소경 같은 인생이라 알지 못하고 사망으로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며 부딪혀 보고 그제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영혼의 눈을 떠서 미리 알고 인생을 살아라.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생 다 살고 난 후에 그제야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안다. 이미 인생 실패한 후에 그때 알면 뭐 하랴. 인생의 날을 짧게 잘라 보고 시간을 짧게 잘라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많은 날을 주시고 많은 시간을 주시어 오래 사는 듯하다. 그러나 길게 따져 보면 인생 너무도 짧다. 하루를 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1년을 하루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말만 100년이지, 조금 실상 살아 보면 100일 만큼 짧다. 같은 양이라도 좁쌀로는 수만 개지만, 쌀로 하면 수백 개다.
2. 말만 인생 100년이고, 하루 24시간이지 살아 보면 너무 짧다. 인생 100년을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따지면 10분의 1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만물처럼, 꽃처럼 그와 같은 이치로 창조하셨다. 세상은 물질 세상이라 잠깐 살다가 끝나도록 창조하셨다. 그 짧은 시간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단장하여 하늘나라 천국에 오르라고 인생을 창조하셨다.
3. 인생 100년 동안 이것저것 수천 가지 행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다 쓰다 보면 인생 사는 날이 실상 몇 십 년도 안 된다. 잠자는 시간과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다. 어렸을 때 성장기는 인생 사는 기간도 아니다. 이것저것 다 빼면 인생의 맛을 알고 사는 기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2010년 12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생 일생을 하루같이 보는 것은 너무 축소시켜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1년을 하루같이 보고 살아야 한다.
2. 인생 1년은 긴 하루와 같다. 그렇게 80~90년 살면 끝난다. 그동안 몇 십 년을 산 자들에게는 이제 정말 짧은 인생의 기간만 남겨 두고 있다. 늙어서 사는 시간은 칠 것도 없다.
3. 앞으로 50년만 더 가면 지구 60억의 인 구름 중 30억은 죽는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 100년 안에 늙어 죽게 창조해 놓으셨다. 마치 가을이 지나고 점점 겨울이 오면 대지의 그 많고 많은 식물들이 없어지듯 인생을 창조하셨다.
4.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가까운 거리를 가든지, 먼 거리를 가든지 버스에 꼭 찬 사람들이 30~60분 만에 어느새 다 내린다. 이와 같이 인생도 가다 보면 어느새 늙어 죽는다. 그런데 인생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고, 영혼의 구원을 모르고 살다가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 줘도 관심 두지 않고 살았으니 어찌 하랴. 죽음을 예비하고 자기 영혼을 단장하며 예비한 자는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의 몸으로 제 갈 길 가기 바쁘다.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혼에 소망을 두고 영혼을 온전히 만들 때다. 비가 와서 옛 초가집에 비가 새든지, 바람이 불어 옛 초가집 지붕이 날아가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어서 새 집 짓는 것에 몰두하여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한다. 어서 새 집을 지어야 옛 초가집 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 가니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다. 욕의 집이 망가지고 쓰러져도 새 집을 짓듯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한다.

2. 하나 포기, 하나 건설이다. 욕 포기, 영 성공이다. 옛 집을 팔아야 새 집을 완공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산다.

3. 땅과 집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더 좋은 것을 사는 것이 지혜다. 그래야 현재도, 미래도 이상세계다. 욕의 것을 팔아 영원한 영의 것을 사야 한다.

4. 옛 것을 가지고 있다가는 밭의 보화를 빼앗기듯 영혼을 빼앗긴다.

<2010년 12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우리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살아 주지 못하신다. 주님은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행하게 해 주신다.

2. 주님은 새벽에 말씀하시고 온종일 우리가 행하기를 바라신다.

3.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행하여 거둬들일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신 유익이 주님께 돌아간다. 그러므로 주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

4.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의 몸이다. 자기가 행할 때 자신도 주님도 극치의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며 그것이 영원까지 간다.

<2010년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느낌에서 온다.

2.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성장하지 않은 자들은 어린아이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로 간다.

3. 머리 되는 지도자가 있어야 모아서 이끌어 간다.

4. 아직 결정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의 머리가 되어 이끌어 가면 따라오게 된다.

5. 사람은 포로처럼 끌려가기 싫어한다. 자기가 주인 되어 가기를 원한다. 고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가게 해야 오래 간다.

<2010년 12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게 하여 따라오게 해야 된다.

2. 머리는 발이 가도록 해 줘야 된다.

3. 저마다 자기 인생의 맛을 느끼며 가게 해야 된다.

4.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가면, 어린아이는 걷는 맛을 못 느낀다.

5. 인생을 가르쳐 줘서 저마다 자기 손과 발로 행하며 인생을 느끼면서 가게 해야 된다. 고생 되어도 겪으면서 살아야 유익이다.

<2010년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머리는 항상 자료 제공이다. 몸은 항상 자료를 받아 행하는 것이다.
2. 자료가 없으면 몸은 논다.
3. 머리가 높면 몸도 높게 되고, 결국 세상이 다 높게 된다.
4. 지체는 머리의 다스림을 받는다. 우리는 지체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고로 지체인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뇌에서 느껴서 육이 느끼게 되고, 육이 느껴서 뇌가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육의 세계에서 육이 느껴서 영이 느끼고 알게 되고, 영의 세계에서 영이 느껴서 육이 느끼고 알게 된다. 양단에서 느낀다. 육계는 육이 느끼고, 영계는 영이 느낀다.
2. 눈 자극, 귀 자극, 몸 자극이 마음 자극이다.
3. 눈 노크, 귀 노크, 몸 노크는 마음 문을 열게 한다.
4. 보여 주고, 들려 주고, 몸을 두드려 주면 마음 문을 따 준다.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문은 마음에서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은 육에서 열게 한다.
2. 문 밖의 벨이 집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밖에서 벨을 누르면 안에서 벨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준다. 이와 같이 몸에서 뇌로 신경 세포가 연결되어 있으니 눈과 귀와 몸이 원하는 대로 신호를 보내면 뇌가 그 신호를 받아 원하는 것이면 열어 준다. 이와 같이 육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 벨을 눌러야만 영이 반응하고 움직인다. 육은 문 밖의 사람이고, 영은 집안의 사람과 같다. 밖에서 두드리지 않으면 영의 문은 열어 주지 않는다.
3. 마음이 날고 정신이 날아도 행동하는 만큼밖에 가지 못한다.
4. 사람이 살면서 무서운 것 중의 하나는 무의식중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마치 밥 먹고 살이 찌든지, 빠지든지, 병들든지 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자와 같다.

<2010년 12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뇌세포가 매일 죽어 사라지듯이 생각과 정신도 매일 사라진다. 고로 암기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는 것이다. 신앙도 이같이 정신이 죽어 가면 점점 할 일을 못하면서 죽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른다.
2. 주님이 잠언의 말씀을 주는 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했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준비한 날이 주는 날이다.” 하셨다.
3. 준비하는 것이란, 달라고 하는 것이다.
4. 다니엘 선지자는 민족의 앞날을 깨달으려고 간구했다.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민족의 앞날을 가르쳐 주셨다. 고로 간

구하여라.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자기 마음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또한 타인이 자기 마음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며, 자기가 묶어 놓은 것을 타인이 풀기도 한다.
2. 자기가 자기 마음에 묶어 놓은 것은 자기가 풀 것이니 자기가 풀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작고 작은 것인데도 자기가 풀지 못하고 누가 풀어 주기를 원한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묶었거나, 혹은 타인이 자기 마음을 묶은 것은 자기가 풀 수 있는 것이라면 하루 만에 풀 수 있다. 한 시간에 풀 것인데도 자기 마음을 풀 줄 모르면 10년이 가도 풀리지 않는다.
3. 자기 마음에 매인 것은 자기가 풀어야 된다. 시간이 흐르면 잊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뇌에 있는 것은 마음에 늘 생각나니 풀어서 없애야 된다.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한데 그것을 신의 뜻으로 알고 매인다. 또한 의식 않고 지나갈 일인데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 생각하고 매인다. 또한 자기 생리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현상에 의한 것인데 신의 뜻으로 알고 매이고, 사탄의 방해로 알고 매인다. 그러므로 더 힘들어져 자신이 맨 것을 끊고 풀지 못한다. 사탄의 방해도 있고 주님의 뜻인 것도 있지만,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심리에서 자기를 매고 묶는 것들이 많다. 이것을 사탄이 방해한다고 생각하거나 주님의 뜻이 있어 행하는 것으로 알면 더 짐이 되어 풀기가 어렵다. 이를 교훈으로 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맨 것은 즉시 풀어 없애야 된다. 자연의 순리로 오는 현상들과 자신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오는 현상들을 구분해야 한다. 자연의 현상을 주님의 표적으로 보거나 특별한 의미로 보면 거기 매인다. 주님은 어느 때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교훈하기도 하시고 계시하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분별하고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매이지 않는다. 완전히 분별하여 매이지 말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라.
2.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고 나무가 뽑혔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주님의 계시로 보고 거기 매인다. 주님의 계시면 거기에 매여 그 뜻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주님의 계시가 아닌 것이 많으니 자기 스스로 잘못 생각하여 매이면 안 된다.
3.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잠잘 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잠잘 때 생시의 것을 생각하면 꿈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것이 계시인 줄 믿으면 거기에 매이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꿈을 꾸고 거기 매이지 말아야 된다. 뇌의 생각에서 오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 많다.
4. 매이면 자기 뇌와 마음도 그것에 집착하여 ‘어떤 뜻이 있는가’ 하고 오랫동안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2010년 12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도 “사탄이 그렇게 했다.” 하면, 스스로 행한 것인데 사탄이 행한 것으로만 알기 때문에 맨 것을 풀지 못하고 힘들어한다.
2. 자기 마음으로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도 “주님이 행하셨다.” 하면, 스스로 행한 것인데 주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므로 결국 열매 없는 나무를 가꾸는 것이 되어 헛수고만 하게 된다.
3. 죄를 지으면 죄의 뜻이 있고, 의를 행하면 의의 뜻이 있다.
4. 주를 생각하고 행한 것은 주님의 뜻의 방향을 좇는 것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뜻을 두고 행한 것은 자기 뜻이 있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가 문제다.

5. 주를 생각하고 행했어도 주를 떠나서 행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면 주의 뜻이 될 수 없다.

<2010년 12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약한 자라도 완전하게 행하면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라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약한 자가 된다.

2.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심으로 그 행한 일로 인하여 해를 안 보시고 영원히 존재하신다.

3.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완전하게 믿어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4. 완전하게 행해야 다스리고 강자가 된다.

5.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안다. 실체적으로 확실히 알려면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같이 온전하심을 더욱 깨우쳐 주시므로 알게 된다.

6. 어린아이라도 완전하게 행하여 언덕에서 떨어지지 않아 급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았고, 어른인데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여 밭을 헛딛고 떨어져 급물살에 떠내려갔다. 어린아이가 그 어른을 보고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왜 완전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완전하게 행하면 살지 모릅니다.” 했다. 결국 그 어른은 어린아이 말만을 생각하고 행하여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잡고 구사일생했다.

<2010년 12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가만히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2. 일을 해야 일이 된다.

3. 일은 운전하듯이, 그때그때 운전대 돌리듯이 그 순간순간 해야 된다.

4. 사랑의 주님은 사랑의 세계로 보여 주시고, 권위의 주님은 권위의 세계로 보여 주신다. 개인에게도, 각 교파에게도 그같이 보여 주신다.

<2010년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매일 하던 일을 한 번 안 하니 마음에 표가 나고, 두 번 안 하니 행동에 표가 나고, 세 번 안 하니 몸에 표가 났다. 매일 하면 마음도, 행동도, 몸도 표가 나게 달라진다. * 예) 기도하다가 한 번 못 하면 마음이 꺼려져 마음에 표가 난다. 두 번 안 하면 행동에 문제가 생겨 행동에 표가 난다. 그러다 세 번 안 하면 몸에 실제로 표가 난다.

2. (영계에서 본 현상) 내가 겨루지 않으니 나와 겨루는 자가 없고, 내가 겨루니 그 급에 따라 겨루는 자가 있다. 겨루어 승리하지 않고서는 작든지 크든지 승리의 패를 주님께 얻을 수가 없다.

3. 재촉해서 행하여 시간을 단축해 놓고 남은 시간 여유 있다고 마음과 행동을 늦추면 빨리 한 보람이 없다. 또 밀리기 때문이다. 끝이 날 때까지, 한계선을 넘을 때까지 해야 된다.

4. 자기 일이 밀리면 피곤하고 지친다. 해 버리고 가볍게 만들어 뛰어야 마음도 몸도 홀가분하고 자신감이 생겨 일이 겁나지 않는다. (일이 밀리면 지친다. 일을 가볍게 만들려면 미리 해 버리면 된다.)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몸을 조절하여라. 무리는 무력이다.

2. 몸의 충전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쉬면서 자동 충전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잘 먹고 몸을 풀어 주는 것이다. 영도 정신도 그러하다.
3. (힘이 생기는 법) 상대와 주고받는 수수 관계가 일어나야 전기같이 그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힘이 생긴다.
4. 육적으로 주고받고 마음으로 주고받는 상대적 수수 관계 법칙으로 사람들은 존재한다. 모든 물체도 그러하다.
5. 지구도 존재하기 위해 자체의 힘과 상대의 힘으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다.
6. 시계추도 건드리면 흔들리는 법칙에 의해 계속 좌우로 흔들리며 작동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사람도 옆에서 말과 행동으로 흔들어 터치를 해 줘야 작동하게 된다.

<2010년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우리 몸의 신경을 자극시켜야 몸이 움직이고 작동한다. 신경은 정신으로 작동시킨다. 고로 주님이 우리 정신이 되도록 늘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말(대화)'로 정신을 작동시키고, 정신으로 신경을 작동시켜서 몸이 행하게 하는 것이다.
2.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면 몸이 무겁다. 행동하여 마음도 몸도 풀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몸도 움직이게 된다.
3. 반드시 시간적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시간까지 하겠다고 결심하고 해 버릇해야 된다. 그러면 뇌에도 그같이 입력되어 몸도 그같이 하게 한다. 뇌는 쓸수록 힘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 안 쓰면 흐르는 샘물이 그냥 흘러가듯 사라진다.
4. 잠언의 말씀은 인생 삶의 답안지다. 안 되는 것이 되도록 그 방법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해 본 자를 통해 말해주는 것이 곧 잠언이다.

<2010년 12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여 묻기를 “하나님, 인간에게 너무 많은 자유의지를 주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니 거의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삽니다. 인간 마음대로 못 하게 반쯤만 자유의지를 주고 창조하셨다면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말씀해 주시기를 “인간을 그같이 창조했다면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만들 것을 다 만들고 자유를 주어 존재시켜야지, 반만 만들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한다. 나 역시 나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 만들려면 제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문제는 너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뜻대로 살아서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나의 나라에 오는 것이다. 오직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함이 문제다. 너희가 나의 뜻대로 못 하는 것이 문제다.” 하셨다.
2. (하나님 말씀) 나 여호와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유의지를 반만 주고 내 뜻에 쫓겨 살게 창조했다면 인간의 형상도 그에 해당되게 창조해야 되기에 짐승보다 조금 더 낮게 창조했어야 한다. 고로 나 여호와와 형상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받아도 나의 형상으로 완성되지 못하여 하늘나라에 올 수가 없으니 안 된다. 만들 것을 아주 다 만들고 자유의지를 다 주어야 인간이 나를 나타내며 구원을 받아 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 인간이 나의 말을 듣고 제대로 살아야 나도 제대로 뜻을 펼 수 있다.
3. 부모가 자식을 만들 때 손을 만들면 사고 낸다고 하며 손을 안 만들면 자식은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만들고, 그다음에는 가르쳐 행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러하다.

<2010년 12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삼위체는 이와 같이 일체다. △ △ △ / □ □ □ / ○ ○ ○ 그러면서 각위로 존재한다.

2. 사람이 음식을 만들거나 집을 지을 때 먼저 재료와 자료를 갖다 놓고 만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존재를 위해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명하여 자연적으로 합성되어 자연과 인간의 실제 형태가 만들어지게 하셨다.

3. 사람이 심부름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로 심부름을 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너지와 각종 자료들을 1단계로 먼저 창조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힘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어지게 하셨다.

4.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물’을 만드시고 뜻을 위해 사역자로 사용하신다.

5. 비유컨대,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와 같다 하겠다. 지구 안에 자원과 지하자원들을 있는 대로 캐내어 쓰듯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자기 실력대로 묻고 캐내어 그것을 세상에 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수준과 차원에서 묻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선(線)만큼은 가르쳐 주신다.

6. 잡초 속에 약초가 있으면 캐내어 귀히 보듯, 세상 많은 인간들 중에서 약초 같은 자들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여 묻기를 “영원성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나 자체서 영원성의 존재자이니 얼마든지 영원성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고로 인간도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기에 그 영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창조한 것이다.” 하셨다.

2. 지옥 쪽의 영들은 썩은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 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듯이 구원받은 자의 영혼도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4. 금이라도 변하지 않게 관수하는 법칙을 벗어나, 가루로 만들어서 썩는 녹물에 넣고 거기에 각종 폐수를 섞으면 변질된 것이 되고 같이 썩는 것이 되어 버린다.

5. 인간의 영이 완전해져서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하면 안 된다. 세상에서 완전하게 신앙을 만들었어도 마음이 변하고 타락되면 그 영도 변질되어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자신의 영이 완전한 천국의 영이 되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과정중이기에 자신이 변하여 타락되면 영도 그 영향을 받아 변질되고 타락된다는 것이다. 항상 절대적으로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2011년 1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마음은 소금과 같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랴. 마음도 맛을 잃으면 그러하다.

2. 맛을 잃지 않으려면 절대 주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된다.

3. 마음이 맛을 잃지 않으려면 주의 뜻대로 굳건히 행하고 변치 말아야 된다.

4. 사랑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5. 믿음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6. 실천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7. 기도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

8.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점점 네 인생의 맛을 잃어 간다.

<2011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일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지, 항상 안전에 주의하면서 해야 된다. 육적세계도 신앙세계도 동일하다.
2.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숨은 쉬면서 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어도,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항상 숨은 쉬어야 된다. 이와 같이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을 할 때는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고로 그 모습을 항상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 구경만 하고 관광만 하다가는 사고 난다. 사랑만 하다가 타인으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으니 경계하면서 해야 된다. 먹이를 사냥하여 먹는 동물도 경계하며 먹는다. 그래야 안 뺏긴다.
3.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을 안 할 때보다 더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다. 얻는 만큼 고통이 온다. 그것은 얻은 것에서 오는 쓰레기들이다.
4.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초가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지으면 그 날부터 고통이 온다. 더 좋은 집을 지을수록 고통이 오고 수고가 따른다. 그래도 새 집을 짓지 않으면 평생 초가집 삶의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과 주님의 일도 그러하다.

<2011년 1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를 위해 행할 때 그 고통은 잠깐이나, 그 축복의 대가는 영원하다.
2. 희망찬 일에 묻히면 그로 인하여 오는 고통은 대단히 삭감되어 감당하게 된다.
3. 겨울철에 밖에서 운동하면 춥다. 그러나 뛰고 달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만큼 땀이 나고 열이 나서 추위의 고통은 없어지고 결국 운동으로 인한 건강의 대가가 남아진다. 육적인 모든 것과 신앙적인 것도 그러하다. 가만히 있으면 남는 것이 없다.
4. 인생에게 고통도 행복도 새끼줄로 꼬여 있는 삶의 노선이다. 그 노선을 가는 것이다.

<2011년 1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자기 지능으로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일을 보거나 겪게 되면 “기적이다!” 한다. 자신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표적이다. 기적이다.” 하지 않는다.
2. 하나님과 주님은 평소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신다. 어떤 물건이 책상에 있는데도 찾을 때는 안 보이게 하시고, 안 찾을 때는 보이게 하신다. 눈을 가려 못 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도 주님도 이같이 인간의 마음을 조정하신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찾을 때는 안 보이고, 안 찾을 때는 보이니 나와 마음을 가까이하여라.” 하신다.
3. 하나님도 주님도 생활 속에 교육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생각으로만 생각한다. 하나님도 주님도 작고 큰 것을 생활 가운데 보여 주시며 교육하심을 알아라.
4. 평소의 것을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는 주님은 능력자이시다. 주님은 정신으로 조정하신다.

<2011년 1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항상 육의 것을 보이시면서 영의 것을 깨닫도록 계시하신다.

2. 영계에서는 무언으로 계시하신다. 영은 육체보다 지능이 높아서 말하지 않아도 깨닫고 알기 때문이다.
3. 세상에서도 지능이 높은 자들은 서로 많은 대화를 하지 않고도 통한다. 만일 서로 잘 통한다면 서로 100마디 할 것 몇 십 마디만 하고도 행할 것이다.
4. 사람이 길을 갈 때 모르는 길이나 물어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길을 굳이 사람들에게 묻고 말하지 않는다. 영계에 가면 지상보다 80~90% 많이 안다. 이는 영이 보고 겪기 때문이다. 고로 영들과 만나도 대화가 별로 없고, 만나서 서로 대화해도 무언으로 통한다. 육계는 말을 많이 하며 침 튀기는 세상이라면, 영계는 무언의 세계다.
5. 주님을 만나도 자신이 아는 만큼 무언으로 통한다. 무언으로 통해도 대화다.
6.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는 거의 마음으로 통하는 대화를 하시고, 만물을 통해 전달하는 대화를 하신다.

<2011년 1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단계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자기가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힘들고 어렵다. 누구나 깊은 기도를 해야 깊은 것을 깨닫게 되고, 깊은 것을 받아 전하게 된다.
2. 세상 말은 귀로 들려오나, 영계의 말들은 마음으로 들려온다. 뇌가 마음이요, 귀다.
3. 설교 때 귀로 들은 말씀도 기도하면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들려온다. 보다 영적으로 마음에 깊이 생각하니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을 시인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4.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은 결국 마음을 통해서 온다. 고로 강한 마음과 정신으로 이겨야 된다. 환난과 어려움이 정신을 공격하여 마음이 무너지게 한다. 사탄도 결국 마음과 정신을 치고 유혹한다. 마음이 넘어지면 지는 것이다. 모든 이성 유혹도 마음에서 안 받아들이면 이긴다. 주님과 마음을 일체 시켜라. 금과 금을 용광로에 녹여 한 덩어리가 되게 하듯, 성령으로 자기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라.
5.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혹은 형제들끼리도 마음과 정신을 상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쓰러지게 한다. 혹은 마음과 정신을 유혹하여 문제가 생기게 한다. 그러니 자기 마음을 쥐고 다스려야 된다. 누구든지 마음이 강한 자는 다 이긴다. 마음이 강한 자를 사탄도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기도해야 마음이 더 강해진다.

<2011년 1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들을 빨리 크게 하려면 합당하게 뭉쳐야 된다.
2. 대역사는 먼저 개인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교회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모여 대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3. 땅에서 대역사를 해야만 주님이 하시는 하늘의 대역사를 맞춰 하게 된다.
4. 인간의 방법은 항상 한계상황을 면치 못한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방법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5. 구원받은 자도 자기 방법과 생각으로 행하며 살면 구원이 상실된다.
6. 세상에서도 순리와 법칙대로 해야 존재하는데, 그같이 하지 않으면 곧 존재함이 상실된다.
7. 주님과 대역사는 주와 통하지 못하는 자가 통하는 것. 주님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 하고 사는 자가 주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생명을 전도하지 못하던 자가 전도하며 가르쳐 주고 관리하며 주님 손발이 더욱 되어 사는 것 모두 해당된다.

8. 자기 생각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생각으로 행하고,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행하면서 주님을 최우선권으로 앞에 모셔 놓고 주님을 목적하고 사는 것이 개인적, 교회적, 섭리적 대역사다.

9. 주님은 2000년 동안, 또 구약 4000년까지 총 6000년 동안 준비하여 재림하시어 신랑으로서 신부들을 찾아오시니 땅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미련 없이 대역사를 이루면서 준비하여 주님을 맞아야 된다. 주님 재림은 삼위의 대역사다.

<2011년 1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자기 욕신에 관한 것들, 곧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씻고 닦고 입는 것 등은 하나하나 챙겨서 잘한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은 생각에서 끝나고 행동으로는 안 한다. 신앙의 일도 꼭 자기 욕신을 챙기듯 해야 된다. 욕신의 일은 기껏해야 남은 인생에서 끝나지만, 신앙의 일인 영적인 일은 그 영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일이다.

2.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으나 크나 꼭 끝까지 행해야 한다. 그래야 영혼이 영원 끝까지 존재하게 되고, 욕도 받을 것을 다 받게 된다.

3.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 보고 안 되어 망하고 실패한 후에 돌이킨다. 애초부터 하늘 뜻대로 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길로 간다.

4.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잘 가르쳐 주어라. 그리하여 앞날에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치듯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도록 아예 자기 생명같이 잘 가르쳐 줘야 된다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맛있는 것을 못 느끼고 권태가 온다. 좋은 생활을 할지라도 같은 것을 반복하는 삶은 권태가 온다. 새로운 것을 향해 정신도 차원을 높이고 삶도 차원을 높이고 살아야 새 삶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이 차고 넘친다.

2. 때가 되면 자기 기존의 삶에서 차원을 높여 살아야 더욱 큰 희망과 이상이 이루어진다. 역사도 때에 따라 차원을 높여 계속 전진한다.

3. 주를 믿고 살려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상상도 못 하는 세계를 이루며 가게 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된다.

4. 예수님은 자기 인생, 영도 욕도 생명길로 가게 하는 스위치다. 매일 눌러 탄 길로 가지 않게 해야 된다.

<2011년 1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2. 생각이 무를 만들고 유를 만든다.

3. 사람의 생각은 무전기 같은 역할을 한다.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여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 통하게 된다.

4. 무전기가 성능이 약하면 교신해도 잘 안 통하듯, 정신이 약하면 잘 안 통한다.

5. 생각을 확실히 해야 정신의 기능이 좋다.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어떤 것

을 두고 생각을 확실하고 귀하게 하고 생각한 것을 행하며 살아야 정신과 생각의 기능이 확실하고 좋아진다.

<2011년 1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마치 힘과 같다. 힘을 쓰는 대로 더 무거운 물건을 들 듯, 생각을 강하게 할수록 생각이 강해지고 뚜렷해진다.
2. 생각은 마치 연필 같다. 글을 쓸 때 살살 쓰면 글씨가 흐릿하다. 그림을 그릴 때 살살 그리면 그림이 흐릿하다. 그러나 연필을 꼭 눌러 쓰고 꼭 눌러 그리면 확실하다. 생각도 그러하다. 꼭 눌러 생각하면 확실하다. 말도 그러하다. 꼭 눌러 말하면 확실하다.
3. 무전기로 멀리 있는 자와 서로 통하려면 서로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 이같이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서로 통하려면 생각이 서로 같아야 한다. 가령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상대는 다른 자를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안 통한다.
4. 주님과 통하려면 주님 주관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화해야 한다.

<2011년 1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이라도 조금만 썩으면 온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이나 행동이 썩으면 ‘자기’라는 마음과 몸의 방 안에 냄새가 가득하게 된다. 작은 것이라도 썩고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회개해야 주님의 깨끗한 향기가 난다.
2. 과일나무를 쳐다보다가 과일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이고, 나무는 못 먹어도 과일은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인생 나무보다 마음과 생각, 곧 뇌를 쳐다보시고 마음을 주신다. 행여 그 마음이 썩고 더러워도 주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곧 뇌를 향해 있다. 주님과 통하려면 육으로는 못 통하고 마음과 생각, 곧 뇌로 통하기 때문이다. <삽화> ① 두 사람이 과일나무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내 나무에서 과일로 눈이 가고 손가락으로 과일을 가리키는 모습 : “정말 맛있겠다.” ② 예수님과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 예수님의 눈도 그 사람의 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마음도 손짓도 그 사람의 뇌를 향해 있는 모습 (화살표로 표시)
3. 사람의 뇌는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면 즉시 생각하는 것이 뇌에 시동이 걸리고 작동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뇌에 한 번 시동이 걸려 생각이 돌아가면, 마음과 몸에 불이 붙어 좋아하는 작용이 일어나 생각한 것을 그대로 몸으로 행하게 된다.
4. 사랑의 생각을 하면 사랑의 뇌세포 시동이 걸리고, 어떤 말을 두고 한마디 꺼내면서 생각하면 말의 시동이 걸리기도 한다. 시동이 걸리면 이어서 그 말이나 사랑이나 해야만 충족을 느끼는 단계로 바로 생각이 시동이 걸리면서 이어서 작동하게 된다. 그러면서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바로 뇌 전체가 불이 붙어 일체 되어 그 일을 하게 된다. 고로 자신이 한 번 시동 걸리면 절제하지 못한다. 마치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바로 작동되어 누른 대로 작동 하듯 한다. 이때 즉시 멈추고 다시 원위치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더 있다가 누르면 안 되듯, 뇌도 생각이라는 리모콘으로 움직이는데 이와 같다.
5. 어떤 기계를 작동시킬 때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된다. 기계는 스위치를 끌 때까지 계속 작동된다. 스위치가 손에서 벗어나면 기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된다. 사람이 어떤 일을 두고 행할 때도 ‘생각’이라는 스위치로 뇌신경 세포가 작동되어 몸으로 행하게 한다. ‘생각’으로 시동을 걸고 어떤 일을 행하다가 선을 넘어가게 될 때는 선을 넘어가기 전에 ‘생각’의 스위치를 끄고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을 벗어나 끝까지 그것을 하게 된다.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행한 공적으로 저울질하신다.

2. 자기가 행하는 것 중의 한 가지라도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고서 다른 것도 그와 같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3.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해당되는 한두 가지만 잘하면 그 일을 완전히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균형 있게 다 잘해야 전체를 완전하게 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생활 중에서도 한두 가지를 잘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말고, 마치 학생이 모든 과목을 평균적으로 골고루 잘하듯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한 가지만 신경 쓰다 보면 다른 것은 아예 잠재우게 된다.

4. 저마다 하루를 두고 살아 보아라.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 하는지, 매일 자기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된다.

5. 글을 써 놓고 교정하는 데 있어서도 20여 가지를 다 잘해야 글이 제대로 나온다. 틀린 글씨, 앞뒤가 바뀐 문장, 본 내용에서 지나치게 다른 말로 흐른 것, 남이 못 알아듣는 자기만의 단어, 목적 전달이 제대로 되었는가 등 20여 가지를 다 교정해서 완전한 글이 된다. 특히 문장의 앞뒤가 바뀌었는데 고치지 않으면 글이 죽는다. 100% 다 교정하고 고쳐야 글이 빛난다. 이와 같이 자기 생활도 완전한 삶의 작품을 만들려면 정신, 생각, 행동을 고치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고쳐야 된다.

6. 어떤 자는 말은 또박또박 하는데 내용이 감동적이지 못하고, 어떤 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데 기도를 못 하고, 어떤 자는 기도는 잘하는데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7. 어떤 자는 하면 잘하는데 시작을 못 한다. 어떤 자는 인기는 있는데 말을 할 때 상처를 잘 준다. 고치지 않으면 받은 빛나도 받은 빛나지 않는다.

8. 어떤 자는 작은 깨알 같은 글씨는 잘 쓰는데 큰 글씨는 못 쓴다. 어떤 자는 설교할 때 말은 잘하는데 제스처를 못 한다. 제스처는 하나의 도표나 약도를 순간 그려서 이해시키는 것과 같아서 설교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다.

<2011년 1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이 늦어 쫓기면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시간을 쫓아야 된다.

2. 늦은 것은 주님이 함께하셔도 힘들다. 이는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거북이를 타고 하시니 힘든 것이다.

3. 거북이는 토끼와 다르다. 고로 새벽잠을 안 자고 토끼보다 5~6시간 전에 먼저 떠나야 된다.

4. 거북이가 토끼가 일어나는 시간에 똑같이 일어나면서 “왜 나는 다리가 짧게 태어나서 빨리 달릴 수 없지?” 하며 창조자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투덜대며 불평한다. 다른 거북이는 원망하지 않고 토끼보다 빨리 일어나서 먼저 출발한다. 게으른 거북이가 유독 원망하고 불평한다.

5.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서 일이 닳치면 한탄한다.

<2011년 1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아직도 천리나 남은 길을 언제 걸으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말이 되어 뛰어가라. 그러면 천릿길도 쉽게 간다.

2. 지금 자기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 할 일이 중요하다.

3. 토끼가 며칠 전에 집을 나간 자기 애인 되찾았다고 기뻐서 산기슭에 앉아서 자기 애인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빨리 뛰어서 저 산까지 자리를 옮겨야 된다. 자리를 옮긴 후에 자기 애인과 껴안고 사랑하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 된다. 사냥꾼이 눈에 불을 켜서 ‘아까 본 토끼가 여기로 갔는데…’ 하며 살살 올라오고 있다. 이같이 자기 위치에서 할 일이 있다. 암토끼가 수토끼보다 더 크니까 사냥꾼이 총을 쏘서 먼저 암토끼를 잡는데, 수토끼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총에 안 맞아도 죽는다.

4. 산노루가 사람보다 빠르지 않아서 잡힌 일은 없다. 쿨쿨 잠을 자거나 한눈을 팔고 있다가 부지런한 나무꾼에게 잡힌 후에 그제야 알고 도망가려 발버둥 치다가 결국 잡힌다. 제자리에서 할 일 못 한 답답한 산노루다.

<2011년 1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들어라. 풀씨를 기른다고 나무가 되겠느냐. 돌감나무에 거름을 하며 정성껏 기른다고 참감나무가 되겠느냐. 물이 불이 될 수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사람 자체로는 신이 안 된다. 사람이 신과 일체 되어야 사람으로서 신이 된다. 오직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 되어야 한다. 유일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절대적 유일신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때가 되면 모두 처리된다.

2. 인간의 욕은 날든지, 기든지 유형체를 면치 못한다.

3.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으로 날고 기어야 유형계를 벗어나 영원한 세계까지 이르게 된다.

4. 저마다 최선을 다해야 그 위치에서 나는 삶을 살게 된다.

5. 희망이 없는 새는 날려 하지 않는다.

6. 희망이 없으면 온종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내일은 나는 것이다.

7. 사람은 저마다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도 솟으려 하지 않는다.

<2011년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삶의 씨를 공평하게 나눠 주셨다. 저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를 얼마나 가꾸고 키우며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어 살게 된다.

2. 공평하신 하나님과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무지와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을 개탄하고 다시 온전히 하여라. 그러면 다시 온전히 생각하고 행한 데서부터 기점이 되어 미래가 기다린다.

3. 간절한 희망에는 간절한 실천이 자본이며 열쇠다.

4. 너를 실천시켜라. 그러면 매일 얻는다.

5. 성공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6. 네가 성공의 주인이고 금덩어리다.

7. 인간이란 금덩어리를 잘못 쓰면 은이 되고, 철이 되고, 돌이 되고, 흙이 된다. 잘 쓰면 다이아몬드 인생 된다.

<2011년 1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행하되 생각을 놔두고 몸만 가지 말아라. 생각 없이 몸만 가서 행하면 마치 주인 없는 나룻배가 바람 부는 대로 가

듯 가게 된다.

2.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
3. 행한 것에 주 하나님의 표적도 축복도 실행된다.
4.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실천만 하면 된다.
5. 주님도 매일 모으고 헤치고 일하신다.
6. 일이 낙이다. 벼슬이다. 사명이다.
7. 잠언도 안 쓰면 나오지 않는다. 쓰다 보면 좋은 잠언이 떠오른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2011년 1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문제이고, 주님은 인생의 답이다. 인생끼리만 살면 항상 문제다.
2. 주님 안에서 조건, 대가, 축복이다.
3. 악인은 항상 사탄과 함께 시기, 질투, 험담, 불신, 악평이다.
4. 사탄과 악한 자는 때가 되면 영원히 베임을 받고 불사름을 받는 가시나무와 같이 된다.
5. 떠나기 전에는 멀다. 떠나면 점점 가깝다.
6.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행하지 않음은 자기 책임이다. 고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2011년 1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행실의 몸을 사리면 깨끗한 옷이 까매질까 봐 일 못 하듯 할 일 못 한다. (꿈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공이 내게 날아왔다. 그런데 옷이 까매질까 봐 못 잤다. 꿈을 깨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
2. 사람이 편하려고 몸을 사리면 꼭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된다.
3. 흰 양복을 입고서는 흙바닥에서 옷에 흙 묻는 일을 못한다. 이와 같이 할 일을 두고도 편하려고 몸과 마음을 사리면 할 일 못 한다.
4. 마음 편하고 몸 편하게 몸을 사리면서 살면 거들 것이 없다.
5. 마음도 몸도 편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도 몸도 몸부림쳐 그 일을 행한 후에 편하게 해야 된다.

<2011년 1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연 수석이나 희귀종 나무를 다른 자가 주워 가고 캐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줍고 캐야지 자기 것이 된다.
2. 미련을 갖고 후회하는 것은 자기 때에 못 했기 때문이다.
3. 한 정원사에게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100주가 있었다. 정원사가 볼 때 100주의 나무는 저마다 작품성도 가격도

모두 차이가 있었다. 맨 처음에 나무를 사러 온 사람이 제일 값도 비싸고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 작품을 사 갔다. 그다음에 나무를 사러 온 사람은 그 나머지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를 사 갔다. 또 그다음에 나무를 사러 온 사람은 그 나머지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맛있는 나무를 사 갔다. 이렇게 하여 수십 개의 나무 작품이 팔렸다. 나무 작품을 사 간 자들은 서로 자랑했다. 자기가 그 정원에서 가장 작품성 있고 비싸고 맛있는 나무를 사 왔다고 큰소리치며 말했다. 모두의 말이 맞았다. 누구나 그때 남아 있었던 작품들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사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무를 판 정원의 주인만 전체의 나무 중에 가장 좋은 작품을 사 간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오면서 시대를 두고 하나님과 주님 앞에 조건을 세운 대로 사명을 받아 가서 큰소리치며 자기 사명이 최고로 크다고 한다. 그 말이 다 맞다. 말은 맞는데 누가 가장 큰 사명을 받았는지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만이 아는 비밀이다. 정원에 제일 먼저 와서 작품을 사 간 자가 최고 좋은 나무 작품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와서 나무 작품을 사 간 자가 그다음으로 맛있는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자다. 나무 작품을 사 가는 자마다 항상 그 당시 전체 중에 제일 좋고 비싼 것을 사 갔으니까 자기가 전체에서 제일 좋은 것을 사 간 것으로 아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이나 실상 제일 좋은 나무를 사 간 자는 단 한 명이다. 시대의 사명자도 그러하다. 금-은-동-돌-흙이다.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안 하고 편한 것과 어떤 편이 몸과 마음이 더 편하겠느냐.
2. 매일 자기 할 일을 하고 난 것이 더 편하겠느냐, 안 하고 편한 것이 더 편하겠느냐.
3. 할 일을 안 하고 그 시간을 편하게 지냈는데, 후에는 계속 편하지 못했다. 해야 할 일을 하니 계속 편했다. 만사의 모든 일이 이러하다.
4. 자기가 '오늘'이라는 날을 안 보내고 '내일'이라는 날을 맞을 수 없듯이, 할 일을 안 하고서 미래의 희망의 세계로 가는 길은 없다.

<2011년 1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겨울철에 춥다고 몸을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더 춥고 몸도 더 오그라져 고통을 겪는다. 몸을 펴고 움직일수록 몸 자체에서 열이 나 춥지 않다. 이와 같이 일을 할 때도 자꾸 몸을 사리고 피하고 오그리면 몸만 더 괴롭고 마음만 더 편치 않게 된다.
2. 인간의 몸은 난로다. 가동시켜야 열을 내고 뜨거워진다. 그냥 두면 얼음장이 된다.
3. 가만히 있다가 추위에 볶이지 말고, 뛰고 활동하여 추위를 볶아 대라. 생활도 그러하다.
4. 누구든지 자기 환경과의 싸움이고 자기 일과의 싸움이다. 실천하지 않으면 패자가 된다.

<2011년 1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공기도 흔들어야 흔들리고, 지구도 흔들어야 흔들린다. 너도 그러하다. 가만히 놔두지 말고 너를 흔들고 다스려라.
2. 너 스스로 너를 다스리고 주관하지 않으면, 내가 너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고 주관을 받게 된다.
3.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자연의 지배를 받게 되고 자연의 종이 된다. 다스려야 편하다. 이와 같이 너의 정신으로 너의 육을 다스려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라. 영 앞의 육은 육 앞의 만물 같은 존재다. 다스리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게 된다.
4.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의 생각은 모두 실패한다.

5. 불은 잘못 쓰면 불내서 타 죽기도 하고, 잘 쓰면 편하게 살기도 한다. 정신도 그와 같다. 잘못 쓰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잘 쓰면 자기를 편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

6.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는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끝난다.

7. 온전한 정신만이 자기를 온전히 존재시킨다.

8.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존재자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생명의 정신으로 온전히 바꾸지 않으면 사나마나 실패한다.

<2011년 1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잘못 생각하면 잘못 행한다.

2. 생각을 잘해야 욕도 편하다.

3. 영이 편해야 욕도 편하다.

4. 생각은 흐르는 물 같아서 그때그때 흘러가고 끝난다.

5. 생각은 물 같아서 뜨겁게 하면 뜨거워지고 차갑게 하면 차가워진다. (* 고로 생각을 잘하라는 것이다.)

<2011년 2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성삼위에 대하여 몰라야 될 것은 모르고 믿는 것이 편하다.

2. 인간의 각자 수준만큼 성삼위를 알고 섬김이 합당하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전지전능하심과 엄위함과 높고 높음을 인간이 다 알면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하나님을 좋아하며 믿고 섬길 때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 믿고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좋다. 성장하는 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2.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어렸을 때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아이가 커 가면서 스스로 부모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이 있다.

3. 저마다 커 가면서 스스로 배우고 알게 된다.

4. 성장해야 스스로 영계도 육계도 알게 되는 것이다.

5. 어린아이에게 이성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느끼지 못하여 자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듯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자에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면 영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여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지식에 불과할 뿐이다. 성장한 대로 가르쳐 주고, 성장한 대로 일도 맡겨라.

<2011년 2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조용한 산속에서는 여러 종류의 새소리가 다 들려오지만, 소음 속의 도시에서는 같은 새가 울어도 새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새벽 시간은 산속과 같고, 낮 시간은 도시 속과 같다.

2. 깊이 기도하는 새벽은 조용한 산속에 있는 것과 같고,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은 시끄러운 도시 속에 있는 것과 같다.

3. 소음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영의 세계의 것들이 소리가 나도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2011년 2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패역한 인생들... 썩는 쓰레기통같이 썩어 가며 사랑하고 먹고 취하며 자기를 즐겁게 하지만, 썩어 맛이 변하여 그나마 끝이로구나.

2. 이성 사랑도, 세상 사랑도 꽃과 같다. 이성에도, 세상에도 자기가 좋아서 몸과 마음을 던지며 미련 없이 뛰어든다. 때가 되어 꽃이 지고 눈보라 치고 북풍한설 몰아치니 자기가 못 견디고 곤고함과 회의와 허무를 인정하고 인생길을 찾는다. 그러나 그때는 깊은 사망의 계곡을 홀로 나와야 되니 후회로다. 고독과 쓸쓸함과 두려움과 떨림이로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도깨비한테 귀신한테 홀려 갔었나?' 한다. 다시 인생길을 찾아 나오지만 무거운 죄 짐만 지고 허무함과 허탈감에 나오는 길이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괴롭겠느냐. 이는 마치 모르고 좋아서 자기 스스로 깡패들한테 끌려가다가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당하고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

3. 돈도, 사랑도, 명예도, 환경도 영혼의 곤고함과 인생의 곤고함과 마음의 곤고함은 해결할 수 없다. 그것들은 순간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격이요, 순간 배고팠을 때 음식을 먹는 격이다. 영혼과 마음을 채우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구원을 받아야 된다.

4. 인간이 이성의 사랑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마치 아토피 피부병 환자가 피부가 가려울 때 박박 긁어 주는 것과 같다. 아무리 긁고 또 긁어서 시원하게 해도 계속 긁으면 살만 헐고 피가 나오고 더 괴롭다. 근본 피부병이 나아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곤고함과 고통이 아주 없어진다.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혼이 치료되어 영과 마음이 건강해져 시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져 인생 근본의 곤고함이 해결되어 낙이 오고, 인생 근본의 사랑이 해결되어 기쁘다.

<2011년 2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피부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 신경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나 성적으로 자극을 주어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이나 다 똑 같다. 치료하여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주의 뜻과 생각으로 자극시키며 살아야 기쁨과 이상이 영원하다.

2. 아토피나 각종 피부병에 걸리면 간지러워서 안 긁고는 못 참듯이, 인생들 성적 사랑의 자극도 못 참는다. 피부병을 고치면 더 이상 안 긁듯이, 인생 사랑의 각종 병도 고쳐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근본을 고쳐야 된다.

3. 피부병에 걸린 자가 순간 가려울 때 긁으면 시원하기는 한데 완전히 다 나을 때까지 지옥 고통이다. 사랑의 각종 행위의 피부병도 그러하다. 긁는 것이 치료가 아니다. 고쳐야 된다. 언제까지 살이 벗겨지게 긁듯이 사랑의 행위로 마음의 간지러운 것을 해결하려 하느냐.

4. 머리를 안 감고서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고 손톱이 닳도록 두피에 피가 나도록 머리를 긁기만 하려느냐.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깨끗이 감아 버려야 한다.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진정 간구하고 회개하고 행하여 근본을 깨끗이 해결하고 인생의 병을 치료받고 살아야 정상적으로 주와 함께 살게 된다.

<2011년 2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글을 써 놓고 보아야 모순 있는 글이 보이고 더 좋은 단어가 보이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영계나 삶의 차원도 그 단계에 가야 그 다음 단계의 더 좋은 것이 보이고 생각한다.
2. 신경 쓰고 생각을 집중하여 그것을 자세히 보고자 하고 봐야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3. 신경 쓰지 않고 보면 보았어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4.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하던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생각은 자기 육신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다.
5. 생각으로 느끼고, 생각으로 좋고 나쁜 것을 깨닫게 된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전혀 맛을 느끼지 못하여 먹으면서도 그 음식이 좋고 나쁜지를 모르듯,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좋고 나쁜지도 모른다.

<2011년 2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는 받으시되,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행하심을 알아야 한다.
2. 자신이 어떻게 해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의향이 있으니 그 뜻대로 해 주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기에 하나님은 개인이나 단체나 민족을 보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
3. 정말 하나님의 의향이 없는데 기도하였기에 기도한 것 때문에 해 주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향이 있으셔서 해 주셨는지, 기도하면서 궁금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해 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기도해서 해 주신 것도 있다.
4. 어떤 것은 혼자 간구했으나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에게 해당되어 자신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간구 했어도 이루어진 것이다.
5.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 기도하면 이루어지게 하신다.

<2011년 2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지 않기에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2.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해 주신 것도 있다. 그러나 거의 인간의 기도 책임분담에 의해 이루어진다.
3. 책임분담에 해당되는 것은 절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4. 책임분담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된다. 자기가 먹을 밥을 자기가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배고프듯이, 자기가 할 일을 두고 자기가 안 하면 계속 그대로 있다.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만 이뤄지듯 기도도 그러하다.
5.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일이다. 일하는 대로 일이 되듯이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6.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에 얻을 것을 못 얻고 결국 지옥까지 가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쳐다보기만 하신다고 생각하여라. 그 정도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된다.

<2011년 2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급해도 순서 바꿔서 하면 안 된다. 급해도 순서대로 해야 된다. 급하다고 기도할 시간에 딴 것 하면 기도 시간을 빼

앗겨 사탄이 침범하게 되어 다른 시간도 점점 빼앗고 혼돈되게 해 버린다.

2. 기도는 마치 집의 열쇠와 같다. 집 열쇠를 잃든지 빼앗기면 언제 누가 집을 약탈할지 모르듯, 기도를 잃은 날에는 언제 사탄과 인사탄이 침범할지 모른다. 고로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날은 생활 속에서 기어이 해야 된다.

3. 사람이 그날 해야 할 일을 안 했는데 된 일이 있느냐. 그날 밥을 안 했는데 밥이 저절로 된 일이 있느냐. 안 한 것은 되어져 있지 않다. 한 것만 되어져 있다.

4.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불을 지펴 밥을 하고 음식을 해야 먹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일을 해야 얻게 되고, 복을 받고, 유익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께도 유익이 된다.

5.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 사랑하라고 허락했어도 자기가 사랑해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며 사랑을 허락하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이 100% 다 갖춰져 있어도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온종일 ‘무(無)’로 끝난다. 행해야 얻게 된다.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존재자이시다.

3. 내가 행해야 하나님도 주님도 나를 향해 행해 주신다.

4. 행하지 않는 자는 항상 ‘무(無)’요, 행하는 자는 항상 ‘유(有)’다.

5. 행하지 않는 호랑이보다 행하는 토끼가 훨씬 낮고 더 강하다.

6. 행하지 않는 천재보다 행하는 무지자가 더 낮다.

7. 가만히 서 있으면 뒤차가 달려오다가 박고 만다. 이와 같이 삶의 수레바퀴에서 행하면서 순리대로 가야 된다.

<2011년 2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온종일 글을 써서 행하니 2만 자의 글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썼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온종일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 자의 글도 쓰지 못했다. 행한 날과 행하지 않은 날은 2만 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2. 하루는 너무 바빠서 급한 일을 하느라 계속 미루면서 밥을 먹지 않았다. 결국 배가 고파서 정말 급한 일도 못 하게 되었다. 급해도 해야 된다. 계속 안 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3. 나는 행했기에 내 인생 여기까지 왔다. 내가 처음 떠난 곳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

4. 행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지옥이다.

5. 천국은 행하는 세계다.

6. 행하지 않으면 슬픔이요, 절망이요, 지루함이다. 행하면 기쁨이요, 희망이요, 감격이요, 사랑이 불붙는다.

7. 강추위에 밖에서 서 있으면 결국 얼어 죽는다. 뛰고 행하는 자는 추운 겨울도 여름 되게 한다.

<2011년 2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욕으로 보면 안 보인다. 영으로 봐야 욕의 실상도, 영의 모습도 확실하게 보인다.
2. 욕의 행위의 모든 실상은 영이다. 영은 욕의 모든 행위를 흡수하여 영의 형상을 지니며 나타내고 있다.
3.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간의 영혼을 영원히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자기 영혼의 주인 되는 사람은 무관심이다.
4. 실상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5. 영혼은 욕과 같이 인생 100년 소모품이 아니다. 영혼은 구원받으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늘나라는 지구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으로, 선과 사랑으로 변화된 영혼들이 가는 곳으로 창조된 곳이다.
2. 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그 영도 욕이 변화되어 빛나듯 변화된다. 욕의 행위를 통해 영혼이 선과 사랑으로, 주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3. 욕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를 낙으로 누리며 살면 욕도 영도 변화되어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인생 최고 삶의 목적이다.
4. 욕신의 마음, 생각, 행실이 주님의 생각과 행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다.
5. 자기 위치에서 심령이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는 만큼 축복이다. 그러면 영혼도 그같이 변화된다.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매일 점점 변화의 계단을 올라가라. 완전히 변화된 자는 선과 사랑과 기쁨 속에서 해같이 빛나며 살게 된다.
2. 주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변화되어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축소한 잠언으로 1000 잠언을 써도 다 쓰지 못한다.
3. ‘목적’을 위해 만물도 좋게 변하지 않고 나쁘게 변하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
4. 악을 뿌리 뽑고 자기 모순을 뿌리 뽑아야 빛이 나고 온전히 변화된다.

<2011년 2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땅에서 태어나 땅에 속하여 사는 자가 자기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까지 변화되어야 하니 그 얼마나 변화해야 되겠느냐.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 믿고 순종하며 행해야 욕과 영이 온전히 변화된다.
3.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욕성, 본성대로만 살면 변화되지 않아서 욕도 세상에 속한 자로서만 살다가 끝나게 되고, 그 영도 욕과 같이 어둠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4. 하늘에 속한 영의 형체로 변화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흑암 사망에 속한 영으로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된다.

<2011년 2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이 원한다고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해야 변화된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된다.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도 행함으로 육과 영의 변화를 이루는 것은 인생 최고 가치의 삶이다.

2. 사망에 속한 영도 육도 변화를 이루어 빛에 속한 영과 육이 되고 싶어 변화를 이루는 행위를 하는데도 행동이 빨리 안 되고 쉽게 되지 않으니 하다가 만다. 고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여 사망 반, 생명 반의 미완성된 모습으로 그 영이 중간 영계로 가게 된다.

3. 계획적으로 자기 행위를 선으로 변화시키고, 계획적으로 자기 마음과 정신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며 매일 그 일을 행해야 한다. 그래야 습관이 들고 길이 들여져서 다시 변질되지 않는다.

4.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서 행해도 죽은 인생이다.

5. 변화될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희망도 꿈도 이룰 수 없다.

<2011년 2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좋은 과일나무는 퇴비하고 잘 키우기만 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화하여 때가 되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이 가면 점점 변화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와 같이 시간만 간다고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고치고 행해야 변화된다. 변화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야 영원하다.

2. 사람의 육신은 세월이 흐를수록 성장하면서 얼굴이 변하고, 공부하여 변하고, 갈고 닦아서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삶의 터전이 변하게 된다. 이같이 세상에 속한 변화는 변화되어도 육신에 속한 변화만 이룬다. '참변화'란, 육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변화를 이루고, 그에 따라 그 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의 속한 영으로 변화를 이루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변화를 말한다. 이것을 육신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로 살다가 끝난다.

3. 자기 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볼 수가 없으니, 자기 육신의 행위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 자기 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영은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변화하는 절대적 삶을 살아야 보다 옛 삶을 끝내고 새로운 단계의 삶을 살게 된다.

2. 찾길을 닦는 일을 끝내야 차를 운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운전하는 일을 끝내야 기다리던 사랑하는 자를 만나 사랑을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그 단계 그 차원에서 하는 일을 행하여 변화되어야 다음 단계의 변화를 맞게 되고, 그렇게 단계를 오르다가 결국 최고 목적의 변화의 세계를 이루게 된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육신의 변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육신의 변화로 인하여 영도 변화를 이룬다. 그렇게 영이 점점 주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영생의 영'이 되게 해야 된다.

3. 조금 변화돼서도 안 되고, 변화되다가 말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미완성의 영으로서 온전한 세계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

4. 개집도 완성하지 못하면 눈이 오고 비가 오면 다 맞게 되니 개가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 하물며 인간의 육과 영의

변화는 어떠하겠느냐? 자기 영과 육도 완성시키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이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

<2011년 2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신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도, 세상도 더 좋게 변화되기를 희망하고 갈망하며 산다.
2. 자기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행위가 이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환경도, 세상도, 그 어떤 희망도 더 좋게 변화되지 않는다.
3. 혼자만 좋게 변화되고, 사랑하는 자는 변화되지 않으면 상대로 인하여 곤고한 것이다.
4. 개인이나 교회나 섭리역사가 모두 더 좋게 변화되는 것만큼 주와 대역사를 이루게 된다.

<2011년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더 얻으려고만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 생각, 행실이 주님의 뜻대로 더 좋게 변화되는 만큼 얻게 된다.
2. 똑같은 행실, 똑같은 마음, 똑같이 반복되는 세계는 그 수준과 차원의 것만 얻게 한다. 더 좋게 변화되어야 더 좋은 다른 것을 얻게 된다.
3.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고 초가집에서만 살려느냐. 자기 주관권에서만 살려느냐.
4. 어떤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몸부림쳐 행함으로 변화되어 신앙의 별장에서 살면서도 그것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더 변화되고자 몸부림치는데, 너는 똑같이 주님을 좇으면서 언제까지 신앙의 초가집에서 만족하고 살려느냐.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애벌레가 애벌레만 보면 애벌레로 만족하고 산다. 그러나 나비를 만나면 자기 만족을 잊어버리고 나비에게 묻는다. 애벌레 : “너는 어떻게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꽃밭에서만 사니?”나 비 : “너는 어떻게 어느 누구도 감히 묻지 않는 질문을 하니?”애벌레 : “나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곤고하고 허무해. 꽃밭에 기어가면 꽃향기만 맡으니 곤고하고, 그나마 사람들이 지나가면 밟혀 죽을까 두려워. 나는 항상 꽃밭의 황태자, 공주와 같은 별과 나비가 너무 부러웠어. 나비아. 너는 도대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니?”나 비 : “애벌레야. 너 절대 내 말을 믿고 행해야 해. 그러면 어느 날 홀연히 변화되어 나같이 나비가 될 거야! 꽃밭에 돌아다니다가는 사람에게 밟히거나 새에게 쪼아 먹힐 수 있으니 답답하지만 나무로 올라가서 때를 기다려! 그러다 때가 되면 허물을 벗고 홀연히 변화되어 날아다니게 될 거야. 나도 처음에는 너와 똑같이 땅바닥에 기어 다니며 주름만 잡던 애벌레였어.”만일 나비가 애벌레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자기와 같은 애벌레를 쳐다볼 때는 만족하다가,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를 쳐다볼 때는 곤고해하며 살다가 새에게 쪼아 먹혔든지,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든지 했을 것이다. 가르쳐 준 대로 변화되어야 한다!
2. 애벌레가 변화되지 않으면 땅바닥을 면치 못하고 사람에게 밟혀 죽든지 새에게 쪼아 먹히고 만다. 육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영도 변화되지 못한다. 그러면 사탄에게 밟혀 죽고, 쫓겨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3. 때가 되었는데도 때에 맞게 변화되지 못하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날짐승이고, 식물이고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제 가치를 빛내지 못하고, 고통을 면치 못하고 구시대에서 살게 된다.
4. 때가 되어도 날지 못하는 새는 땅에 사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과 그 영혼도 때가 되어도 변화되지 못하면 사탄과 악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만다.

<2011년 2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변화'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낳게 한다. 땅에서 살다가 죽어 끝날 인생들을 변화시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까지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2. 영은 육신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주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 고로 육신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행하면 육도 영도 빛나게 변화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사명을 하게 된다.
3. 똑같이 귀한 시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신앙의 집이 누구는 초가집이고, 누구는 별장이고, 누구는 궁궐인가? 자기 생각과 행위 때문이다.
4.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에 따라 변화의 차원이 다르게 일어난다. 신약 때는 자녀 입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성약 때는 신부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5. 육이 꿀 같은 시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육도 영도 더 좋게 변화된다.

<2011년 2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예수님의 참된 말씀을 듣고 믿고 시인함으로 몰랐던 것을 알고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질 때 그 마음이 변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시인함으로 생각한 것을 행할 때 육이 변화된 것이다. 육신이 행한 것에 따라 그 영도 행한 것이 되어 영도 변화된다.
2. 사람의 마음, 생각, 육신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의 영의 운명도 좌우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해야만 육신도 천국급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영도 천국급의 차원으로 변화된다.
3. 스스로 행하는 자는 시대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하여 결국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4.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개인과 시대가 과거보다 더 변화되라고 더 차원 높은 새로운 말씀을 준다.
5. 변화하려면 반드시 시대 주님의 말씀을 표상으로 하여 듣고 생각부터 변화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를 이룬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루고 살면, 자동적으로 영의 변화가 일어나 영원한 뜻을 이루게 된다.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사랑만이 구원의 열쇠다. 그 사랑을 품어라.
2. 주님과 사랑 일체가 되어 빛을 발해야 된다. 주님보다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된다.
3. (예수님) 나는 내 모습 자체를 사랑해 주는 자를 원한다.
4. (예수님) 가치를 모르면 손에 쥐고 있는 보물도 빼앗긴다.
5.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2011년 3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성장이 느리면 보는 자가 답답하다.

2. (예수님) 나에게서는 진실한 사랑만이 통한다.
3. (예수님) 너 때문에 무너진 내 마음은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다시 쌓아 주어야 한다.
4. (예수님) 내게 사랑한다고 하며 나를 보고 ‘주여!’ 하는 자가 내 마음을 모르니,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 마음을 위로 받고 알아주기를 원하겠느냐.
5. (예수님) 내가 마음을 쏟아 진실로 사랑한 자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그로 인하여 내 사랑의 한도 풀리고 모든 것도 풀리는 것이다.

<2011년 3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나 예수가 말한 것을 지키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죄를 짓게 된다.
2. (예수님) 사랑이 식는 데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식간에 식는다. 그러나 사랑이 뜨거워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애간장이 타는 것이다.
3. (예수님) 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진정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 간다.
4. (예수님) 내가 찾는 사랑은 나를 위하여 뭐 하나라도 해 주고 싶어 안달하는 사랑이다.
5. (예수님) 지상에서 천인이 되었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여라.

<2011년 3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수도 없었고, 악평할 수도 없었고, 원망할 수도 없었다.
2. (예수님) 나 예수는 언제나 참아 주고, 언제나 품어 준다. 그러나 나에게도 감정이 있음을 알아라.
3. (예수님) 누구든지 신앙의 고도를 낮추지 말아라.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면 다른 비행기와 부딪히고 땅의 높은 지역에 부딪힌다. 신앙도 그러하다.
4. (예수님) 네 사랑과 기도로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네 선생도 살려라. 항상 나를 불러라. 항상 내가 대답하고 네 사연을 들을 것이다.

<2011년 3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누가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의 줄로 꼬꽂 묶어 놓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2. (예수님) 진정한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다.
3. (예수님)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랑’만을 본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느냐.
4. (예수님) 사랑으로 휴거된 영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에 천국과 지상을 자유롭게 왕래한다. (시 있음.)
5.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우냐. 세상 이성은 그렇게도 빨리 사귀고, 정도 들도, 오래 이야기하면서 왜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도 시원찮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2011년 3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내 심정을 아는 자가 일해야 심정 맞춰 같이 일하게 된다.
2. (예수님) 음식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좋아하여 먹듯, 예술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듯, 나 예수도 나에게 맞아야 같이 한다.
3. (예수님) 하늘이 중심이다. 땅이 중심이 아니다. 나 예수가 중심이다. 네가 중심이 아니다.
4. (예수님) 나 없는 곳에 생명력도 없고 사랑도 없다. 고로 죽은 삶이다.

<2011년 3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모든 것은 감각이다. 감각이 있어야 만들고 창조한다.
2. (예수님) '마음'이 영의 역할을 하고, '육신'이 육의 역할을 하듯이 지상에서 '음악'은 감성이니 영적 역할을 하게 되고, '기술'은 육적 역할을 하게 된다.
3. (예수님) 찬양은 사탄을 몰아낸다. 사탄은 찬양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 찬양은 육성을 제어한다. 매일 찬양하라!
4. (예수님) 내게 와서 자기를 만든 자가 내게 합당하게 자기를 만든다.
5. (예수님) 엘리트는 엘리트가 전도한다. 엘리트를 전도해 왔으면 이를 가르치고 지도할 자가 있어야 된다.

<2011년 3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나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작은 일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며 천국을 마음으로 열고 영으로도 얻는다.
2.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결혼 못 한다.
3. (예수님) 사랑은 '물'과 같으니 삶에 있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또 사랑은 '불'과 같으니 삶에 있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4. (예수님) 사랑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다. 휴거될 때 사랑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사랑 때문에 휴거된다. 휴거되는 자를 보고 구경만 할 것이냐.
5. (예수님) 내 사랑의 꿀을 먹여 줘야 죽은 영도 살아나고 죽은 마음도 살아난다.

<2011년 3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사막 같은 너희 마음에 내 사랑의 씨를 뿌려 놓고 싹이 나기를 기다린다. 싹이 나기도 어렵고 기르기도 어렵다. 나 예수니까 그래도 열(10)의 하나에 싹이 나게 하고 기른다. 네 마음 밭을 옥토 밭으로 만들면 모두 다 싹이 나리라. 모두 내가 기르리라. (시 있음.)
2. (예수님) 가시 밭, 돌 밭, 길바닥 같은 마음에도 나는 희망을 걸고 내 사랑의 씨를 뿌린다. 가시 밭, 돌 밭,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새들이 쪼아 먹듯이 그러한 마음에 내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탄이 가져갈 것도 내 안다마는 뿌릴 곳이 없나, 열(10)의 하나, 백(100)의 하나를 보고 희망으로 뿌리려나. 이 볼모지에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다. 나의 심정 알고 가시덤불을 자르고, 길바닥을 부드럽게 하고, 돌 밭의 돌들을 주워내는 자들이 있구나. 내 사랑이 결실하니 천주적 표적이다. 나도 감탄했노라. (시 있음.)

3. (예수님) 너희는 나 예수같이 가시 밭, 돌 밭, 길바닥 같은 마음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그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육'의 생명도 귀하니 이미 죽어 시체가 되어 썩은 자를 부둥켜안고 살아나라고 하며 슬피 울어댄다. '영혼'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한 번 살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희망을 안고 여러 마음 밭에 사랑의 씨를 뿌린다. (시 있음.)

4. (예수님) 내 사랑, 이 땅에 와서 이렇게도 모질게도 짓밟힐 줄이야. 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성을 사랑했더라면 온 세상을 모두 내 사랑으로 정복했겠지. 그러고는 한 세대에서 끝나고 이 세상에서 끝났겠지. 나도 인생 뒤흔들었지. 그러다 내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하고 어둠에서 끝났겠지. 그러하기에 천(1000)의 하나, 만(10000)의 하나가 와도 하늘 사랑 영원한 사랑했노라. (시 있음.)

5. (예수님) 순금 같은 사랑을 해다오. 그 사랑 빛은 어디를 가도 빛나리라. 그 사랑은 핍박, 환난, 억울함을 당해도 부패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하면 돌이 되고, 사랑하면 하나 된다. (시 있음.)

<2011년 3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진리를 배워도 변화해야 된다. 진리는 시작이고, 사랑은 완성이다. 진리는 알게 해 주고, 사랑은 완성하게 해 준다. 사랑으로 삶의 모든 것이 휴거된다. 완전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나와 일체 되는 사랑이다.

2. 사랑의 목적을 가진 자는 매사에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3.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사랑을 제일 희망으로 두고, 사랑을 제일 생명으로 두시는 예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사랑 이야기밖에 안 하신다. 주님은 '사랑'을 목적으로 하여 다 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랑을 보시고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으시다.

4. 주님의 사랑이 세상 이성적인 사랑으로 끝난다면, 영원한 사랑의 존재자로서 영원한 사랑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5. 주님은 사랑 때문에 심판도 하시고, 사랑 때문에 축복도 해 주시고, 사랑 때문에 구원도 해 주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2011년 3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찮은 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향해 온전하고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마치 코끼리가 비스킷 하나를 주워서 먹어도 그 큰 몸 전체가 꿀맛을 느끼듯, 주님은 자신의 능력만큼 그 한 사람의 사랑을 크게 느낀다고 하셨다.

2. 사람이 꿀을 먹고 느끼는 것과 개미나 동물이 꿀을 먹고 느끼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주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 사랑을 느끼는 것의 차이도 하늘과 땅같이 다르다.

3. 성숙한 한 여자와 아직 크지 않은 소녀가 느끼는 사랑의 느낌이 다르듯이, 주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도 우리의 정신과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랑의 차원이 낮다.

4. 주님과 사랑해도 우리의 정신과 혼과 영이 성장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한다. 성숙한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면 서로의 사랑을 다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과 사랑할 때도 그와 같다. 정신과 혼과 영이 성장되어야 주님의 사랑을 다 느낀다.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네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내가 대답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 흔들리는 마음, 정하

지 않은 마음에 대답하고 답을 줘도 흔들려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2. (예수님) 기도하는 자가 목적을 확실하게 두고 구해야 답을 줄 때도 ‘옳다.’, 혹은 ‘아니다.’ 대답할 수 있다.

3.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할 줄 알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하고 갖춰야 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니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된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간구하고, 준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도 인간 책임분담을 해야 되기에 그것을 안 하면 할 때까지 얻지 못한다.

4. 주님을 사랑해도 자기 죄를 회개해야 주님이 그 사람을 취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다.

<2011년 3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정신’은 육신의 생명이다. 주님과 통하려면 정신이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된다’라는 것은 자기 정신의 고리를 주님 마음 고리에 연결해야 된다는 말이다. 연결되면 대화하면 통한다.

2. 사람이 죽을 때 몸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듯이, 하늘나라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오직 세상에서 의를 행한 공적들만 영이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그것은 사랑, 진리, 선 등이다. 사랑과 진리와 선으로 자기 영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그 변화된 영체를 가지고 자기 육이 세상에서 얻은 하늘의 지식과 지혜만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3.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일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기구도 다르고, 일하는 자들의 성격도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르다. 하나 되어 해야 결국 건물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일하는 자들도 개성, 성격,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하나 되어 서로 이해하고 해야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완성된다. 다 똑같이 한 일만 한다면 건물은 평생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하고 서로 돕고 위해 주고 사랑하면서 지어야 된다.

4. 주님 사랑에 정신과 행실이 아주 빠져 버려야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고 그것에 빠지지 않게 된다.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 나 예수를 그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 너희가 천국으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지상영계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된다. (시 있음.)

2. (예수님) 너희 마음, 정신, 혼,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고 싶으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된다.

3. 사람의 마음, 생각, 정신, 혼은 어떤 형체 없는 존재로서 신비한 존재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정신이 좋고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여 만들게 된다. 정신이 악한 것을 생각하면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 되어 불의의 마음과 혼이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행실도 악한 행실을 하여 악한 삶을 살게 된다. 고로 마음, 생각, 정신, 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시 있음.)

4. 인간의 마음은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이다. 자꾸 생각하고 몸으로 행해야 무에서 유를 만든다. 생각은 무한한 에너지다. 생각할수록 끝이 없다. 생각은 영과 연결되어서 자꾸 쓰면 무한한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은 무한한 에너지이지만 육이 약하니 그 생각을 다 실현하지 못하고 한계를 맞게 된다. 그러니 육도 연단하고 단련하고 튼튼하게 하여 쓰면 5~10배 크게 많이 쓰게 된다.

<2011년 3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천국’에 대하여 천국에 사는 천인들도 배우고 천사들도 계속 배운다. 천국에 간다고 해서 다 천국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지상에 있을 때 지상의 것을 배우고 살았듯이, 영이 천국에 가면 천국의 것을 배우며 산다.

2. 지상에서 한 번 배우면 죽을 때까지 써 먹고, 천국에서 배우면 영원히 써 먹는다.

3. 지상에서 사는 자라도 그 육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사명이 있는 자는 주님의 뜻에 의하여 영계에 가서 영으로 영계에 대한 것을 배우러 다닌다.

4. 예수님께서 땅의 사역을 맡긴 자는 미리 키우시고 뜻이 있으니 영계의 다양한 것을 가르치신다. 사역자는 영계에서 천인들과 함께 배운다. 고로 사역자와 함께 영계 공부를 한 천인들 중에서는 지상에서 영계로 공부하러 온 자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 알기도 한다.

<2011년 3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지금 이 시대는 아마겟돈 영적 전쟁의 때다.

2. 천국에도 천군(하늘의 군대)들이 있고, 천군들이 사용하는 각종 무기가 있다. 사탄 악마들을 멸하기 위함이다. 천국을 위하여 천군이 필요하다. 또 천군들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돕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인다. 사탄들도 사탄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닌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천군들이 가서 사탄의 군대와 싸우게 된다. 싸우면 항상 천군들이 승리한다.

3. 천국에도 세상 군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 그러나 그 무기는 천국 식의 모형이다. UFO 비행접시는 천군들이 지상에 올 때 타고 다니는 것이다.

<2011년 3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미래의 희망만 생각하며 살지 말아라. 과거에 가지고 살았던 미래의 희망이 과거의 미래인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 희망은 미래에만 있지 않다. 미래의 희망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하루하루 미래의 희망이 매일 지나간다. 미래에만 희망을 두고 사니 현재에 희망이 지나가도 모른다. 사람의 생각이 생명이다. 눈이다. 미래만 보니까 현재의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다.

2. 너희 미래의 희망이 무엇이나. 그 희망을 지금 현실에서 이루며 살지 못하면 미래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이루며 살지 못한다.

3. 과거의 미래는 현재다. 과거에 희망했던 것이 과거의 미래인 현재에 각자의 행실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4. 과거보다도 미래보다도 현재가 귀하고 중하다.

5. 사람이 미래에서 사느냐? 과거에서 사느냐? 현재에서 산다. 고로 현재에 희망이 있다.

<2011년 3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과거에 희망했던 미래가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매일 희망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것은 각자의 행실로 인하여 좌우된다. 과거에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과거의 미래인 그 날이 와서 현재 주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준다. 사과를 주려 했는데 현재의 입장이 그렇지 못하면, 사과즙으로 준다. 어떤 것은 말로 주려다 글로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목적만 이루면 되지 않느냐.

2. 네가 생각하는 미래의 희망이 네 생각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영원한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도 너희 희망은 육체적 희망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인생의 근본 문제와 곤고함은 해결되지 않는다.

3. 지금, 오늘, 매일매일 희망을 이루어라. 희망이 무엇이나? 전능자의 뜻대로 영도 육도 청결하게 하여 생명권에서 사

는 삶이다. 이 삶이 희망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육은 지상에서 천국의 사람으로서 지상천국 생활을 하는 삶이고, 영은 영계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이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2011년 3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모든 사람들의 미래의 희망의 삶은 지금 현실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2. 미래의 희망과 꿈과 행실을 지금 현실에서 이루지 않으면 미래에 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이해가 안 가면 어제를 과거로 보고, 오늘은 현재로 보고, 미래를 내일로 보아라. 오늘 삶에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일 희망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의 삶은 과거 - 현재 - 미래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4. 미래의 희망 줄을 현재에서 다 잡지 못하면 미래에 가도 희망을 일으키지 못한다.

<2011년 3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네가 현재 초가집에서 살든지, 옥에 갇혀 살든지, 궁궐에서 살든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든지, 좋은 곳에 살든지, 나쁜 곳에 살든지 현재에서 희망을 잃지 말고 그 환경과 위치에서 매일 할 일을 하면서 주의 뜻, 전능자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현재 고난 중이라고 해서 받을 것을 못 받으면 미래에 평안할 때가 와도 못 받는다.
2.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현재 이루면서 살지 않으면 미래의 그 날, 그 시대가 닥쳐 희망이 와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현재에서 미래의 희망의 삶을 위해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도 미래의 희망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어떤 것은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 중인 현재에서 희망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미래의 희망이 지금 이루어지기도 한다.
3. 미래의 희망은 현재에서 이루어진다.
4. 과거 희망했던 것도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열망하며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미래의 희망과 행복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2. 현실에서 미래의 희망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미래만 보고 가는 자는 미래에 그 날이 왔을 때 “내 희망과 행복이 어디 갔지?” 하며 탄식하기도 한다. 지난 과거 그때 행복도 희망도 지나간 것이다. 그 희망의 열차, 행복의 열차는 고난의 비바람과 눈보라가 칠 때 지나갔다. 그때 희망과 행복의 열차를 타고 미래라는 현실에 왔어야 된다. 행복의 열차는 주님이시다. 행복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3. 인생의 영원한 행복과 희망은 예수님이시다. 다시 찾아라. 행복과 희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생활 속에서 역사하신다.
4. 행복과 희망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이루어진다.
5.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행복이요, 희망이다.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이 행복이요, 희망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과 같이 살 때 너희 행복이 매일 이루어지고 매일 희망이 진행된다.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과일을 한 바구니 가득 담도록 과일을 열게 하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라면, 그 과일을 담은 과일 바구니를 현실에서 만드는 것도 미래의 희망을 이루는 일이고, 미래의 행복을 받는 일이다. 그릇 없이 받지 못하는 행복과 희망이다.

2. 어떤 과수원지기가 좋은 과일나무를 심었다 하자. 그 과일은 3년 동안 잘 가꾸고 키워야 열게 된다. 그 과수원지기의 희망과 행복은 3년 후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면 사랑하는 자를 구해서 과수원에 별장을 짓고 계절마다 과일을 따 먹으면서 사는 것이었다. 그 과수원지기의 희망과 행복은 과일나무를 심은 날부터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일 과일나무가 크고 해마다 성장되어 꽃도 피우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래의 희망과 행복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만일 현실에서 희망과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의 희망도 행복도 없는 것이다. 과일나무가 현실에서 크지 않고 죽으면, 미래의 희망과 행복이 과수원지기에게 이루어지겠느냐. 미래의 행복을 갖는 자는 마치 과일나무를 심은 자와 같다 하겠다. 매일 정신, 마음, 생각, 삶이 주님 안에서 희망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그 정도 해서는 네 희망대로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사람은 느낌이 실상이다.
2. 항상 만족하게 해야 된다.
3. 미래의 희망과 행복은 현실의 삶에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4. 미래의 행복만 바라고서 희망으로만 살지 말고 현실 속에 묶여 가는 희망을 찾아 행복을 만들어 살아라.
5. 자기 행복, 자기가 만드는 것이다.
6. 행복이 무엇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7. 무에서 유를 만들듯이 무에서 행복도 만드는 것이다.

<2011년 3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스스로의 행복은 스스로에서 끝나고, 주님과 행복은 영원까지 간다.
2. 자기만의 행복은 작은 행복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누리는 행복은 큰 행복이다. 주님과 행복은 너무 커서 영원까지 가는 행복이다.
3.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냐고 물어보면 대개가 “보통으로 살아간다.”, 혹은 “불행하게 살아간다.”라고 한다.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보통으로 생각되고, 행복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4. 행복은 뽕족하지도 않고 산봉우리같이 그리 높지도 않다. 죽 먹을 자가 죽 먹고, 밥 먹을 자가 밥 먹고, 진수성찬 먹을 자가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행복이다. 각자 자기 나뭇대로, 자기 차원대로 사는 것이 삶의 행복이다.

<2011년 3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에 은혜 받은 것을 몰랐으나 깨닫고 알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만큼 다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 마음에 은혜가 치솟게 된다.
2. 은혜는 몸의 살과 같아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먹는 대로 살이 찌듯이 말씀을 맛있게 듣고 읽고 전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충만하여 그 영을 보면 포동포동 살이 찌 있다.
3. 은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물고기가 늘 물속에서만 사니까 물의 은혜를 모르고 물이 귀한지

모르듯이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품안에서, 그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서 은혜를 받아도 잘 모른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4. 지난날 은혜 받은 것을 불쏘시개로 삼고 자신들이 은혜의 불을 붙여 다시 은혜의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5. 지난날 은혜 받은 것을 잊으면 마치 비 맞은 나무에 불을 붙이듯이 은혜의 불을 붙이기가 어렵다.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은혜 받은 것을 아주 극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좋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도 좋아하시어 스스로 은혜의 불이 붙도록 역사하신다.

2. 사람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의 심정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면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은 것이다.

3.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 저마다 30가지 이상을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하면 반드시 자신의 마음에 또 은혜가 일어난다. 만일 100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가슴에 더욱 은혜의 불이 붙어 뜨겁게 타게 된다. 은혜를 잊으면 은혜의 불이 꺼진다.

4.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사는 것이 은혜다.

5.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다.

<2011년 3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2. 사람들은 계속 은혜 받고 사는 데도 특별한 것만 은혜로 알기에 은혜를 모르고 산다.

3. 주님이 자기 몸을 쓰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산다.

4.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활로 여기게 된다.

5. 은혜 속에서 살다가 은혜를 떠날 때 그제야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된다.

6. 은혜와 진리는 한 몸이다.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1시간만 진정으로 기도해도 은혜를 받는다.

2. 1시간만 진정으로 계속 찬양해도 은혜를 받는다.

3. 1시간만 진정으로 전도하기 위해 다녀도 은혜를 받는다.

4. 1시간만 예수님께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그동안 죽음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동안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평생 주님을 버리지 않고 섭리사에서 살겠다고 기도하면 뜨거운 은혜를 받는다. 응답도 받는다.

5. 1시간만 주님을 부르면서 성경을 귀하게 보고 읽으면 은혜를 받는다.

<2011년 4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자신이 표적을 일으키며 기도하면 한 번에 은혜를 받는다.
2. 우리가 행하는 만큼 주님은 꼭 은혜를 주신다.
3.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은혜를 손에 쥐고 다니시니 기뻐하며 주신다.
4. 은혜는 늘 냇물같이 흘러간다. 물을 퍼 먹듯이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 은혜는 주님이다. 자꾸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사용해야 된다.
5. 마치 식은 물을 다시 불에 올려놓고 끓이면 금방 끓듯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뜨겁게 하면 식은 은혜가 다시 뜨거워진다.
6. 누구든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가만히 두니 표가 안 난다. 은혜를 가지고 뛰고 움직이고 행하면 은혜가 살아나 같이 뛰며 불길을 일으킨다.

<2011년 4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은혜 받았을 때 부지런히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2. 은혜를 받지도 않은 자가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변화시키지 못한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 육의 행실도 영도 더욱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금과 쇠도 녹여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3. 비가 왔을 때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 은혜를 받아야 육과 영이 해야 할 일이 해진다.
4. 연단 받는 기간도 은혜를 받는 기간이다. 연단을 받으면 강해져서 사탄도 물리치고, 자기를 존재시키고, 연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이다.
5. 환난도 은혜요, 환난과 핍박을 이긴다면 더 큰 은혜다. 고난으로 인하여 영광이 오기 때문이다.

<2011년 4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집중하고 생각해야 될 것을 반복하여 생각해야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계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
2. 생각을 집중하여야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바로 기록해야 된다.
3. 영계에서 보고 깨달은 것도 육계로 나오면 즉시 잊어버리게 된다. 고로 영계에 있는 상태에서 기록해야 된다.
4. 영이 육신을 떠나 영의 세계에 가기도 하지만, 육신이 영과 일체 되어 활동하면서 영의 세계에 이르기도 한다.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며 영계급 차원에 도달해 있는 것도 영의 세계에 이른 것이다.
5. 육의 세계에서 육신이 활동하면서 영계급 차원에서 생각하고 깨닫는 것도 영의 세계에 이른 것이다.
6. 육신이 생생하게 활동할 때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 그것도 깊은 영계의 차원에 이른 것이다.

<2011년 4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육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육계요, 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보는 것은 영계다.
2. 주님을 만난 것이 영계다.
3. 생시에도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통하는 것이 영계급 차원이다.
4. 육신들이 사는 보이는 세계는 육계이고,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들이 사는 세계는 영계다.
5. 영 자체가 영계에 가는 것도 영계에 갔다고 하지만, 육신이 세상에 있으면서 영의 세계를 깨닫고 느끼고, 영안이 열려서 영의 눈으로 영계를 보는 것도 영계 차원에 이른 것이다.
6. 자기 영이 영계에 가야 영계에 간 것이지만, 육신에 영계 급으로 깨닫고 느끼는 것도 영계의 차원에 이른 것이다.
7.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한 생활을 하는 자는 그 행위대로 영계의 차원에 살고 있는 것이다.

<2011년 4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꿈도 하나의 초자연적 영적 세계다.
2. 육으로 보면 작게 보여도 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보이고 크게 보인다. 이는 육보다 차원 높은 영의 눈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의 법이 더 구체적이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3. 가령 죄를 보면, 육의 세계에서 육적으로 보면 특별한 잘못이 아닌 것 같아도 영의 세계에서 보면 죄가 크게 보이고 더럽게 보이고 육계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보인다.
4. 사람을 미워하면, 육의 세계에서 보면 보통으로 보여도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 사람을 죽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차원으로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다. 고로 영의 세계에서 봐야 더 느끼고 알고, 주님의 말씀도 더 감동적으로 외치게 된다.
5. 육적으로는 자기 죄와 의를 잘 모르지만, 영계에서 보면 자기 죄와 의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고로 깊이 기도하여 영계에 가서 영의 차원에서 자기 영의 상태를 보고 자기 죄를 찾아야 자기 죄를 더욱 확실히 알고 회개하게 된다. 또한 깊이 기도하여 영계에 가서 영의 차원에서 자기 영을 보고 자기 의를 찾아야 더욱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갖게 된다.

<2011년 4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영계에 가지 못하는 자들은 기간을 정해 놓고 계속 기도하여라. 그러면 영의 세계를 깨닫게 되고, 영의 세계가 느껴 오게 되고, 마음으로 감동이 오게 되고 알게 된다.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함께하심이 느껴지게 된다.
2. 이같이 지속적으로 하면 그 육과 영이 영적 주관권에 살게 되고, 또 영계에 가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다.
3. 주님 주관권 안에서 사는 자는 생명 주관권 영계에 사는 자들이다. 이들은 주님과 쉽게 통할 수 있는 자들이다.
4. 사망권 세계에 사는 자들은 일단 생명권, 주님 주관권 세계로 나와야 한다. 그래야 주님과 통할 수 있다.
5. '통한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닫고 알고 감동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 주님과 먼저 통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자기 할 일을 하면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2011년 4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모두 영계에 가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와서 행하기가 힘드니 주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하시거나, 기도하여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느끼고 감동받아 행하게 하신다.
2. 주님 주권권에 사는 자들은 주님과 통하기 쉽다. 하루만 기도하고, 3일만 기도하고, 일주일만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주님과 통하게 된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소홀히 하거나 '나는 주님과 못 통해.' 하며 그릇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 장벽을 만들어 더 못 통하게 되는 것이다.
3. 생활 속에 늘 주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려 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애원해야 된다. 범사에 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라.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다.
4.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만난다.
5. 자기 마음, 정신, 행동 기준이 안 되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주님은 신랑으로서 항상 신부되는 우리를 만나 깊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기 원하신다.

<2011년 4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은 신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격이요, 삼위의 하나님이다. 꼭 육의 사람을 보듯 눈으로 보려고만 하지 말아라. 합당하면 주님이 보여 주신다. 인간들이 사람 보듯이 전능자를 아무 때나 막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고로 주님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 가까이 계심과 함께하심을 보이신다.
2. 주님은 특별한 뜻이 없으면 직접 안 보이신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급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 급으로 가지 못하면 주님은 느끼고 깨닫고 감동받아 주님을 느껴 보도록 역사하신다.
3.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깊은 영의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늘 주님과 일체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행하지 못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할 뿐이다.
4.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는 자들도 있지만,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더 뛰고 노력해야 된다.

<2011년 4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육신이 죽어서 할 일을 못 한 것이나, 육신이 살았어도 할 일을 못 한 것이나 못 한 것은 못 한 것이다. 고로 육신이 살았어도 할 일을 못 한 자를 죽은 자로 본다.
2. 육신이 살았어도 할 일을 못 한 자는 실상 육신이 죽은 자와 똑같다.
3. 육신이 죽은 자는 온 지구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시켜도 할 일을 못 하지만, 육신이 살았는데 할 일을 못 하는 자는 어느 한 사람이 깨우쳐 주고 시키면 하게 된다. 고로 교육시키고 감동시키고 알게 해 주고 가르쳐 주라는 것이다.
4. 살아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육이 살아 있어도 행동하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이니 깨우쳐 주고 행동하게 해 주어라.

<2011년 4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꼭 할 일인데 몰라서 못 하는 자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2. 몰라서 못 하니 하도록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어라. 알아도 게을러서 못 하고, 힘이 없어 못 하고, 인식관이 잘못되어서 못 하고, 지체하여 못 하고,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역사를 몰라서 못 하니 주 안에 살면서 살아 행하는 자가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감동을 주면서 행하게 해 주어라. 그리하면 성령과 주님의 뜻이 있으니 역사하시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3.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린다.

4. 죽은 자는 못 한다. 육이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할 일을 못 하는 자가 죽은 자요, 행하는 자가 산 자다.

5. 행할 것을 안 해 버릇 하면 안 해진다.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마음에 하고 싶어도 행해지지 않음은 이미 행할 것도 안 하는 주관권에 빠졌기 때문이다. 산 자가 이끌어 줘야 된다.

<2011년 4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행하는 자는 그 주관과 생각과 마음이 범사에 성령의 감동과 주님의 힘을 얻고 행하기에 쉽다.

2.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같이 말씀하셨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뜻이 이루어졌다. 행하지 않은 것은 마치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무(無)로 사라지듯 사라지고 말았다.

3. 뜨거운 물을 그때 쓰지 못하면 찬물로 사라지듯, 행할 것을 그때 행하지 못하면 사라지고 끝난다.

4. 여름에 얼음과자(아이스크림)를 제때 먹지 않으면 무(無)로 사라지고 말듯이,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유(有)가 무(無)로 사라지고 말게 된다.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행하면 얻고, 행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

2.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는 엄청나게 얻고, 주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자는 얻을 것을 엄청나게 얻지 못한다.

3. 행하여 얻은 자와 행하지 않아서 못 얻은 자를 비교해 보아라. 무엇이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4. 사람은 누구든지 어머니 태속에서 나왔을 때 빈손으로, 빈 몸으로 나왔다. 그러나 행한 자는 그만큼 얻었다.

5. 태평양 바다의 그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도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걸어 나와 사람의 손까지 오지 않으니 가만히 서있기만 하면 평생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아마 잡혀 주고 싶은 물고기라도 “나를 잡아 가서 먹으려면 바닷물에 들어와 잡아야 돼요.”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행해야 얻는다.

<2011년 4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행해야만 얻을 것을 얻고 번창하게 하셨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함으로 얻도록 축복해 주셨다.

2. 하나님은 인간이 저마다 노력하는 만큼, 자기 행위와 그릇 만큼 얻는 기쁨을 주셨다.

3. 어떤 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하여 그 날 못 얻으면 평생 못 얻는 것이 있다. 고로 얻는 데 있어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여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함으로 꼭 그 날 얻을 것을 그 날 얻도록 노력하고 전심을 다하여라.

4. 얻은 것은 써야 된다. 써야 유익하게 된다.
5. 얻은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주님께 기도하고 즉시 즉시 쓸 것을 써야 된다.
6. 제때 못 쓰면 평생 못 쓰고 마는 것도 있다.
7. 얻는 것과 쓰는 것의 기회를 잃지 말아라.

<2011년 4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영계만 영계가 아니다. 육계도 하나의 영계다. 영의 실상이 육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2. 영계를 보여 주어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만물을 보여 주며 자기 육의 상태를 보여 주시고 육계의 것을 보여 주며 영의 실상을 깨우쳐 주신다. 육계의 것을 보여 주시며 영계도 이와 같이 이리하다고 영이 실상을 깨우쳐 주신다.
3. 영계와 육계는 다른 존재의 세계로 존재하지만, 상응하고 교통하며 존재한다.
4. 육신이 게으르면 영도 그 반응으로 게으르고, 육신이 부지런하면 영도 그 반응으로 부지런하다.
5. 육신이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으면 영도 육의 행실에 따라 고통을 받는다. 육신은 영의 반응을 느끼고 그 감동을 받으니 육계를 통해 영의 실상을 깨달아야 한다.
6. 영적 세계는 육신과 만물들을 통해 반응이 일어난다.
7. 영계에 가서 깨달으나 육계에서 영계의 차원에 처해 깨달으나 똑같다.

<2011년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영계에 계시든지, 육계에 계시든지 처지에 따라 주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말씀을 주신다.
2. 주님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말씀하신다.
3. 24시간 언제 주님이 말씀하실지 모르니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된다. 개인에게도 도적같이 오신다.
4. 재림 때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24시간 밤낮 도적같이 오신다. 사람이 잠을 잘 때는 꿈에 오시고, 생시 때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신다. 깨어 있어야 주님이 오심을 알 수 있다.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말로 하는 신령한 일이다.
2. 기도는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지게 해 주는 신령한 일이다.
3. 큰 건물을 짓든지, 큰 공원을 만들든지, 큰 작품을 만드는 자들은 완공될 때까지 몸부림치고 수고해야 뜻한 바가 이루어진다. 어떤 일을 놓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오랫동안 끝까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4. 기도로 일을 하는 것이다.

5. 세상에서도 말로 어떤 일을 하여 이루어지게 하듯이, 신앙에서도 기도로, 말로 신령한 간구를 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4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끼리도 처음 만난 사람과는 대화를 잘 못 하듯이, 처음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니 기도를 잘 못 한다. 사람끼리도 자꾸 대화를 해야 대화술이 늘듯이, 기도도 자꾸 해야 기도에 대해 알게 되고 기도를 잘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절히 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어 구할 것과 말할 것을 하게 해 주신다.

2. 사람끼리도 서로 깊은 대화를 안 하면 서로 오해하고, 멀어지고, 화목이 깨지고, 시험이 든다.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사랑이 식어 가고, 성령의 감동도 없어지고, 할 일을 못 하게 되어 시험에 든다. 고로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끼리도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되고, 자신 스스로도 시험에 들게 된다.

3.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치 사람끼리 대화하지 않고 사는 자와 같다.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4. 충분한 기도를 해야 충분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진다.

<2011년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한 가지만 잘한다고 제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할 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잘해야 잘 존재하게 된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여러 가지를 잘해야 모든 일들이 잘되고 존재하게 된다.

2. 농사를 짓는 농부가 농사짓는 데 필요한 7~8가지를 모두 골고루 신경 쓰면서 곡식을 가꾸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추수하여 얻게 된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기도다. 말씀이다. 실천이다. 전도다. 영광의 찬양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 자기 관리와 형제 관리다. 각종으로 모두 잘해야 균형을 이루면서 잘된다.

3. 한 가지 일만 시간 내서 하면 그것만 잘될 것이다. 모든 일들이 한 가지만 신경 쓰고 하면 그것만 잘되고 그것으로만 유익을 얻게 된다.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도, 말씀, 찬양, 생명 전도, 관리, 감사, 말씀을 전하는 일, 화목, 서로 사랑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한 가지 일을 하듯이 해야 된다. 농사짓는 자는 배추 농사를 지으면 무 농사도 짓게 된다. 고로 풍성하게 얻고 기본 생활을 하게 된다. 신앙생활도 그러하다. 기도하면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게 되고 관리하게 된다. 그리해야 여러 가지 것들을 풍성하게 얻고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유지하게 된다.

<2011년 4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일을 하면 안 될 것을 되게 하듯이,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한다.

2. 방 안에서 밖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만 했는데도 그 큰일이 이루어졌다.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로 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는 큰 능력을 발휘하여 뜻한 바가 이루어지게 한다.

3. 흔히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행하기에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며 그냥 거기서 그만둔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주님이 들으시고 합당하면 이루어지게 하신다. 기도는 불가능이 없게 한다.

4. 기도를 열심히 했으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으시는 것도 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으면 작은 일이라도 이루어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대개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게으르거나 그 일에 겁을 먹고 안 하면 자신이 행하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행하게 하신다.

<2011년 4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해도 자신이 감동받고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해 주시기도 한다. 어떤 일은 여건을 틀어 주시어 우연같이 순리적으로 주시기도 한다.
2.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고 실행하여 주시는지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 기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손에다 선물 받듯이 실감 있게 받게 된다.
3. 기도할 때는 몸부림쳐 실감 있게 기도하지만, 후에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실감 있게 기도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다. 기도한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은 마치 손에 선물을 받듯이 받고 실감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은 1개월, 3개월, 7개월, 1년, 3년,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루어져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기도한 것을 받고도 모르고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수시로 기도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자신이 기도하고 응답 받은 것을 잊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도 더 신경 써서 행해 주신다.

<2011년 4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주를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와 늘 함께하신다.
2. 사랑이 주께 닿지 않으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3. 주님이 마음에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4. 주와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Oh, my God!)
5.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전하는 것이다.
6. 결과는 순간이다.
7.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생각하고 성령을 간구하고 받아라.
8. 주님은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과 민족과 세계의 생명 구원을 위해 희생과 고통의 무릎을 꿇으신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2011년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늘의 보화는 심정이다. 심정이 보화다. 고로 심정을 받아라. (말씀도 심정으로 받아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2.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받아라. 이것이 큰 보화다.
3. 심정이 통해야 삼위께서 각각 해당되는 심정을 쏟아 주신다.
4. 심정의 신부가 참신부다.
5. 심정의 길을 찾아가는 것은 모두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르다. 기도하여 심정의 길을 찾고, 혹은 생명을 구하여 심정

의 길을 찾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심정의 길을 찾고, 혹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심정의 길을 찾고,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심정의 길을 찾게 된다. 이 외에도 사람의 개성에 따라 다르다.

6. 사랑하는 연인과는 말로 통하지 않고 심정으로 통한다.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작은 데서 큰 데까지 사명자를 뽑으실 때 마치 용접할 때 땀질하듯 쓰시려고 사명자를 뽑지 않으신다. 그의 몸으로 쓰시려고 뽑으신다.
2. 나 예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주관을 세우고 자기 경험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는 과시와 교만이다. (주편)
3.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 나 예수의 사랑을 배우고 나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주편)
4. 먼저 나 예수를 체험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도 나 예수를 체험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여 그것을 사랑으로 증거하게 하여라. (주편)
5. 나 예수와 대화가 끊어진 때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때다. 사명에만 빠져 있지 말고 기도하여라. (주편)
6.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나 예수와 일체 된 삶을 살아라. 너희 생각에서 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주편)
7. 형제들과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예수와 먼저 통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한다. 외식도 형식도 안 된다. (주편)

<2011년 4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가정의 아내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바람직한 사랑을 줘야 한다. 너희는 가정의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입장이 되면 안 된다. 성도를 섬기는 자는 있어도 섬김을 받는 자는 없도록 하여라. (주편)
2. 나 예수는 신랑이요, 너희 모두는 신부다. 나 예수는 남편의 입장이요, 너희 모두는 아내의 입장이다. 고로 자녀들을 섬겨 주고 돌봐 주고 키워야 된다. (주편)
3. 설교를 잘하려면 기본 훈련을 하여라. 설교를 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 예수의 슬픔, 답답함, 사랑, 기쁨, 유머를 나타내며 나의 마음에 맞추고 호흡에 맞추어 전하는 것이다. (주편)
4. 무엇이든지 하던 것도 안 하면 감각이 늙어서 무뎈진다. (주편)
5. 나 예수가 2000년 전에 세상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을 때 이 마을, 저 마을, 이 산, 저 산, 이 해변, 저 해변 장소를 이동하면서 했듯이 너희도 그같이 하여라. (주편)
6. 성전을 세워라. 육체가 성전이다. 마음이 성전이다. 또한 물질로 세우는 성전이 있다. (주편)
7. 사탄은 쪼개서 빼앗아 간다. 하나 되면 가져가지 못한다. (주편)

<2011년 4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신다고 하신다.

2. 목적을 잃으면 길을 잃는다.

3. 부족한 것은 연구해서 채워라. 고기를 잡을 때 고기 망에 흠이 없어야 걸리는 대로 고기를 잡는다.

4. 성령의 불이 되어 시대의 사도가 되어 뜨겁게 외치다가 젊음을 마쳐야 죽은 후에도 후회하지 않고 지난날을 생각해도 보람을 느낀다.

5. 한 번 가면 영원히 고통 받는 저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여라. 그로 인해 내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된다.

6. 인생 사망길로 가면서 곤고하게 사는 자들이 많으니 그들과 대화하며 내가 가는 생명길을 가르쳐 주어라.

7. 더 늙기 전에 어서 너의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라. 때 지나면 쓸 수 있는 여건도 사라지고, 재능과 달란트도 무용지물이 된다. 어서 사용하여라.

<2011년 4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나 예수를 느끼고자 하는 자만 느끼고, 받고자 하는 자만 받게 된다. (주편)

2. 책임분담 조건은 하늘의 천법이며 깊은 비밀의 뜻이 있다. 책임분담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얻게 되리라. (주편)

3.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뜨듯이 예수님을 향한 자기 사랑의 차원을 더 높일 수 없도록 높여라.

4. 기분 따라 주님을 따르지 말아라. 주님은 신혼골수를 꿰뚫어 다 아신다. 또 주님을 옹위하는 천사들이 다 안다. 고로 책망할 것이 있으면 그 영과 육과 마음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신다.

5.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전능하신 삼위의 존재자이시다.

6. 나 예수와 접붙이지 않는 자는 자기 때가 와도 생명의 진액이 작용을 하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다. 시대의 차원이 높아진 만큼 죄의 대가의 차원도 높아지고 의의 대가의 차원도 높아졌다. (주편)

<2011년 5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참으로 크고도 큰 것이 사랑인데, 사람들은 너무도 큰 사랑을 너무도 작게 사용하고 끝난다. 이는 육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2.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해야만 잠재해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이 크고도 큰 사랑을 무한히 영원히 사용하게 된다.

3. 아무리 큰 사랑이라도 육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쓰면 1000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용하면 10000배, 100만 배 그 위력을 사용하게 된다. 영원히 크게 사용하니 육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100만 배 더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고, 1억만 배 더 사용한다고 할 수도 없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는 수학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4. 사람들은 저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쾌락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쓰고 자기 영혼을 위해 써라. 그러면 영원한 사랑으로, 범우주적인 사랑으로, 천국적인 사랑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5. 자기 사랑을 한 여자에게, 혹은 한 남자에게 이성으로나 쾌락으로만 쓰지 말고 생명을 구하는 데 쓰고, 주님을 사랑 하는 데 쓰고, 생명을 관리하는 데 쓰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써라. 그러면 그 대가는 영원하 여 영원히 사랑을 받는 값으로 얻게 되고, 영원히 사랑이 끊이지 않게 쓰게 된다.

<2011년 5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너무도 귀하고 큰 시간을 너무도 작게 쓰고 끝난다.
2. '1시간'이라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은 참으로 크고도 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육적으로 쓰면 너무도 작게 가치 없이 쓰고 말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쓰고 자기 영을 위해 쓰면 영원한 가치의 시간으로 썼기에 천주적으로 크고 귀하게 쓴 것이다.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귀하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3. 사람들은 귀하고 큰 시간을 참으로 값없이 작게 쓰고 산다.
4. 영혼을 위해 시간을 써라. 영원히 귀하고 가치 있게 크게 쓴 것이다.
5. 네가 만일 일생동안 너희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시간을 썼다면 시간을 가장 크고 귀하게 쓴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네 영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시간을 기쁨으로 쓸 수 있는 대가를 얻는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2011년 5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다. 그 시간을 누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크게 쓰는지에 따라 영원히 누릴 시간을 찾게 된다.
2. 시간 가지고 돈을 벌어도 아깝고, 연애를 해도 아깝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아깝고, 잠을 자도 아깝고, 귀한 집을 지 어도 아깝다. 무엇을 해야 그 귀한 시간이 아깝지 않겠느냐. 그 귀한 시간에 영혼을 위해 살아야 아깝지 않다. 하나님 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아깝지 않다.
3. 시간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오라고 허락하셨어도 못 간다.
4. 누가 나에게 한 시간에 100만 원을 줄 테니 쉬운 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한다. 더 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5. 누가 나에게 매일 1억 원씩 줄 테니 죽는 날까지 자기를 위해 일해 달라고 해도 안 한다. 나에게 더 귀한 일이 있 기 때문이다. 하루에 1억 원씩 받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1억 원씩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 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을 위해 사는 삶이다. 나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해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 이다.

<2011년 5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하루에 1억 원씩 벌고 몇 조 원을 벌더라도 천국에 못 가면 무슨 유익이냐. 천국을 잃고 돈을 얻는 것같이 무지한 짓이 없다.
2. 하루하루 생명만 지탱하면서 영혼을 위해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하루에 몇 조 원을 벌고 천국에 못 가는 자보다 낫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일만큼 영원히 보람 있고 이상적인 일은 없다.
3. 누구든지 육신만 위해 살면 육신에서 늙고 끝난다. 영혼을 위해 사는 자만이 영원히 가치 있고 보람 있다. 영혼을 위해 사는 자가 영원히 존재한다.
4.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하나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끝난 것이다.

5.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몸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몸이다. 이 귀한 몸을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혼을 구원시켜 영원히 사는 천국을 상속 받도록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신 삶이다.

6. 그 귀한 인생, 그 가치 있는 인생, 육신만 위해 살면 너무 아깝다. 너무 가치가 없다. 너무 허무하다. 너무 짧다. 너무 안타깝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최고 가치의 삶이다. 인간으로서 최고 이상적인 삶이다.

<2011년 5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천국도 시간으로 간다. 천국도 시간 없으면 못 간다. 세상에서 살 때 천국을 위해 시간을 써라.
2. 주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길을 발견했다. 천국을 발견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했다.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가기는 가는데 그 중에 천국으로 못 가는 자들이 너무 많고 많다. 그 이유는 그 귀한 시간을 자기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천국 가기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시간을 영혼을 위해 충분히 많이 써야 천국에 가다가 말지 않는다. 나그네가 하루 100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걷는 데만 전심을 다하고 가듯, 천국길로 그렇게 가야 하루 같은 인생살이 천국까지 가게 된다.
3. 하루 온종일 부지런히 가야 될 길을 늦게 가면 되겠느냐. 가다가 탄 데 시간을 쓰면 목적지를 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천국도 그러하다.
4. 목적지 한 곳을 가기 위해 세상만사 모든 일에 시간 주지 말고, 오로지 목적인 그 길만을 위해 쓰는 것이다. 그래야 정녕코 가게 된다.

<2011년 5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다 왔다고 방심해도 안 되고 여유 부려도 안 된다. 다 가고 나서 쉬든지, 눕든지 해야 된다.
2. 갈 곳을 놓고 재촉이다. 서둘러야 한다. 팔방미인이 같이 가자고 해도 외면이다. 애처로운 노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들어주며 같이 가도 안 된다. 눈 감고 지나가야 한다. 어린아이가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담대히 걸 걷는 법을 가르쳐 주고 걸음을 재촉하며 가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 제2의 장소로 가게 된다. 목적지를 가는 길에 만난 자들은 자기가 안 도와줬어도 다 제 갈 길 갔다. 그들의 갈 길은 육의 길이라서 늦게 가나, 일찍 가나 그 영혼에는 어차피 지장이 없다.
3. 천성길은 제 시간에 못 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못 가고 탄 길로 가진다. 제1코스에서 제 시간에 못 가서 길을 잃었으나 제2코스에서 제 시간에 가는 자는 다시 기회를 얻어 제1코스를 가게 된다.

<2011년 5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현재 잘해야 된다. 그래야 현재 존재할 수 있고 얻을 것을 얻게 된다.
2. 과거에 잘한 것은 현재의 밑거름이 되어 잘할 수 있는 동기를 일으킨다.
3. 과거에 잘했으면 경험이 있으므로 현재에도 잘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에 유익하다.
4. 과거에 잘한 것은 이미 과거에 얻고 쓰면서 존재해 왔다.
5. 지금 현재 존재하고 얻고 쓰려면 지금 잘해야 된다.

<2011년 5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과거보다 지금 더 잘해야 된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은 과거보다 더 발달된 때이므로 현재 잘해야 더 얻게 된다. 지금 현재가 더 소중한 때다.
2. 역사는 개인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보나 과거보다 현재가 더 차원이 높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잘해야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현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3. 사람이 어렸을 때 잘한 것과 컸을 때 잘한 것과 어떤 것이 더 잘하고 더 큰 일을 했겠느냐. 신앙도 그러하다.
4. 인생 과거는 연습이고, 현재는 실습이다.
5. 지금 현재에 잘해 놓으면 지금도 얻고 미래에 가서도 얻게 된다.

<2011년 5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목표를 정하고 지금도 미래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
2.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방향이 없게 되고, 목적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적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
3. 사람이 목적을 줘야 그것을 향해 도전하게 된다.
4. 산을 오를 때도 목표를 정하고 올라가야 된다. 오르다 험하고 어려워서 못 오르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오르면 훨씬 가기 쉽다. 인생도 이와 같다.
5. 목표를 정해 놓고 여러 번 하면 못 하던 것도 해진다. 이는 여러 번 하는 중에 알게 되고, 단련도 되고, 기술과 방법도 터득하게 되어 쉽게 하게 되기 때문이다.
6. <삽화 보여 주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넓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좁은 절벽길이 나왔다 하자. 이때 서로 양보하지 않고 넓은 길을 가던 대로 싸우며 가다가는 절벽길로 떨어지고 다친다. 이런 때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질서 있게 안전하게 가야 한다. 그러다가 다시 넓은 길이 나오면 뒤따라오던 자들은 뛰면서 따라가면 된다.
7. 무슨 일을 행할 때 생각하면서 하여라. 해 놓은 것을 보고 잘했는지 확인하면서 하여라.
8. 일할 때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자기 개인의 일도 모두 끊고 그 하는 일에만 마음과 생각을 쏟아서 그 일을 할 때 해야 제대로 되고 완성하게 된다.
9. 일할 때 집중해서 하지 않고 생각과 행동이 다른 데로 흐르는 자는 마치 참기름 병에다 참기름을 넣으면서 탄 데 쳐다보고 탄 생각하면서 따르다가 땅바닥에 다 쏟고 말게 되듯이 그 하는 일을 그르치게 되고 헛수고 하게 된다. (너희도 한 번 실험해 보아라. 주스 병에 물을 옮겨 따르면서 탄 데 보고 탄 생각하면서 따라 보아라. 물을 병에 담지 못하고 방바닥에 다 쏟게 된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생각하는 데로 흐르게 된다. 고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생각을 집중하여 해야 잘된다. 선생도 말씀을 받을 때 탄 데 쳐다보고 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2011년 5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과 일체 되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의롭게 산 것은 하나의 자기 생각 이상세계로 끝난다.

2.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았으니 선한 세계에는 가겠다.’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다.

3.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한 자가 의를 행해 놓고 주님께 “내가 의를 행했습니다.” 하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또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 나와 상관있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의를 행해야 그 의로 너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내 안에서 절대 분명히 내 아버지를 믿고 매일 나와 상관된 삶을 살고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너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 하신다.

4.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랑과 의는 어떠한지 비유를 들어 말하겠다. 한 남자 앞에 한 여자가 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부리는 종들에게 몸을 주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와서 자기가 착한 일을 했으니 자기의 공력과 사랑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 그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내 종들과 내가 부리는 자들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너의 공력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대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랑을 하고 의를 행한 자의 입장이 이와 같다.

<2011년 5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어도 전능자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일체 되지 않고서 행했으면 그 행위는 땅에 속한 것으로 땅에서 자기 행위대로 얻고 누리고 끝난다. 그 의와 사랑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행해야 주님의 것이 되고 자기가 주님께 행한 대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2.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있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해야 그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 남자의 사랑의 생명의 씨로 생명이 잉태되어 생명을 낳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한 남자와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 위해 의를 행해야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의 씨를 주시어 우리 속에 구원이 잉태되어 자기 구원을 낳게 된다.

3. 황태자와 사랑해야 황태자의 생명이 잉태된다.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해야 만이 그로 인하여 ‘구원’이라는 생명이 잉태되어 자기 구원을 낳는다.

4. 참감나무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기 원하는 자는 참감나무에 접붙이지 않고서 돌감나무와 활엽수와 접붙여 놓고 참감 열기를 원하는 자와 똑같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과 진정 일체 되고 그 뜻대로 선을 행해야 그 선이 자기 구원과 연결되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2011년 5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사 안에서도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이 되어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중심자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혜택도 못 받고 중심자의 혜택도 못 받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 끝난다.

2. 어떤 사람이 회사에 돈을 투자했다. 그런데 그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그 회사 직원에게 투자했다. 그러면 후에 그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도 투자의 유익을 못 보게 된다. 다만 자기가 투자한 개인으로 인한 유익은 볼 것이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권 중심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일체 된 신앙과 의와 행위를 가져야 한다. 그것만이 의의 공력과 구원이 영원까지 연결되어 간다.

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난 자라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져 너의 후손이 되리라.” 하셨다.

4. 하나님은 본래 이루려고 하셨던 대로 정녕코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그러하셨다.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축복하시어 그 후손들까지 축복해 주셨다.

5. 남녀가 사랑했어도 싸우고 맘이 안 맞으면 헤어져서 남이 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이루어졌어도 사람이 책임을 못 하여 주님과 멀어지면 헤어지게 된다.

<2011년 5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므로 두 가지를 다 하신다. 인간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일은 하는데 공중에 걸어 다니는 일은 못 한다. 인간은 생명을 죽이기는 하는데 살리지는 못한다. 인간은 육의 세상은 아는데 영의 세상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2. 인간은 두 가지를 못 해서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시므로 전지전능하시다.
3. 인간은 두 가지를 못 하므로 하나님이 병행하시면 인간은 못 한다.
4. 생각으로 붙고 생각으로 떨어진다.
5. 사랑으로 딱 붙고 미워함으로 딱 떨어진다.
6. 사랑의 끈끈이다.

<2011년 5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딱 들어붙고 미워하면 딱 떨어지고, 생각하면 딱 들어붙고 생각하지 않으면 딱 떨어진다.
2. 지금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하기보다 직접 대화하는 신부 시대다.
3.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만물들은 구조와 형태와 그 작용하는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어 신비하고 오묘하다.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 안에서 작용하신다.
4.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이 깨닫는 것이며 이를 인간이 깨닫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5. 인간이 좋아서 책임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어 쓰시는 자도 있고, 인간이 모르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어 깨닫게 해 주어 하나님이 쓰시는 자도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마음대로 하신다.
6. 인간과 만물이 아무리 신비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움직이는 작용을 하지 않으면 자체 형상만 신비하지, 신비한 것이 없다.

<2011년 5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영계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차원과 수준대로만 보이신다. 더 높은 것을 보여 줘도 사람이 수준이 낮으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여 주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소경에게 보여 주는 것과 같다.
2.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은 빛으로만 보고, 어떤 사람은 음성만 듣고, 어떤 사람은 형상만 보기도 한다. 고로 하나님을 보았어도 그 본체를 보기는 힘들다. 성령님은 마치 왕이 농부의 옷을 입고 나타나듯이 인간의 형상, 곧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신다. 고로 성령님을 보았어도 그 본체를 보기는 힘들다. 보여 주시더라도 그 사람의 차원 급으로 보여 주신다.
3.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해 봐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4.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해 보지 않고서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5.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자기를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정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고,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여실히 느끼게 된다. 그 사랑의 힘에 신앙이 날게 된다.

<2011년 5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좋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부부끼리도 애인끼리도 같이 살지만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는 단계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많지 않다.
2. 자기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단계가 천국의 사랑의 단계다. 천국은 사랑 자동화 세계다.
3. 하나님을 왜 절대로 사랑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고 깨닫는 단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가르쳐 줘도 못 느낀다. 이 역시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 봄으로 알아야 된다.
4. 육적 사랑 세계 역시 왜 사랑하는지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고 깨달아 알게 된다. 영적 하늘 사랑 세계도 그러하다.
5. 사랑 때문에 수천 가지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깨달아라.

<2011년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사랑해야 사랑의 시동이 걸린다.
2. 상대방부터 인하여 사랑의 시동이 걸려 시작된 사랑은 상대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깨지고 식는다. 고로 자기가 사랑해야 된다.
3.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사랑의 시동을 걸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이 먼저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사랑의 시동을 거는 것이다.
4. 아무리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줘도 못 느낀다. 자기가 사랑해 봐야 사랑의 시동이 걸려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느껴진다.
5. 사랑해도 시동이 안 걸리는 자는 사랑이 고장 나 있기 때문이다. 개발해야 될 사람도 있지만 개발해도 안 될 사람이 있다.

<2011년 5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로 인하여 수천 가지를 얻기 때문이다.
2. 사랑으로 가장 빨리 변화하게 된다.
3. 매일 끊이지 않는 사랑이다.
4. 사랑이 힘, 곧 능력이다.

<2011년 5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구원을 이루는 일은 본인이 안 하면 끝난다. (예수님 :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 살도록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도와주시고 나는 구원주로서 너희를 구원하려 아무리 역사해도 자기가 제대로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끝난다.” 이것을 깨우쳐 주어라.)

2. 깨달을 때까지, 확실히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다.

3. 자기 구원, 자기가 이루지 않으면 끝난다.

4.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본인이 안 하면 본인은 끝나지만, 하나님은 다른 자를 시켜서라도 정녕코 행하신다.

<2011년 5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을 중시하여 정신, 마음, 생각, 혼은 모두 육에 속한 것들이다. 고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육에 속해서만 행하면 육으로 끝난다. 자기 정신, 마음, 생각, 혼을 하나님께 속하게 써야만이 육을 벗어나 영에 속하여 영원한 세계로 향하게 된다.

2. 육끼리 모이면 아무리 크게 뭉치고 모여도 육에 속한 육이다. 이는 마치 여자끼리만 모이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역시 여자로, 남자끼리만 모이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역시 남자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도 온 인류는 역시 세상에 속한 존재로서 땅에서 끝난다.

3. 땅과 하늘이 일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존재하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일체 되어야 영이 존재하게 되어 영원한 나라로 간다. 육이 육으로만 살면 역시 육이다. 육이 영과 일체 되어 살아야 육이지만 영의 삶이 이루어져 육도 영도 구원받고 산다.

4.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해 살고 예수님에 속해 사는데도 이에 대하여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육이 땅에 살 동안에도 제대로 못 살고, 육이 죽은 후에 영이 영계에 가서도 제대로 못 산다.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정신만 풍선처럼 땅에 떠서 살지, 행실과 실속은 땅에 붙어 산다.

2.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고 희망한 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지겠지.’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영의 세계에 가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희망한 것이 흔적도 없다.

3. 천국이나 영계에 가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실제로 온전히 행한 것만 실제 자기 것이 되어 있다. ‘세상에서 산만큼 영계에서도 이루어졌겠지?’ 생각하고 가보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내 영이 좋은 도시 같은 곳에서 살겠지?’ 하고 가보면 사막이다. 자기가 이삿짐 싣고 가봤더니 황막한 허허벌판인 격이다. 고로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기도하면서 자기 영이 속한 영계에도 가보고 확인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후에 가야 된다. 이는 이사 가기 전에 꼭 이사 갈 곳을 확인하고 가는 격이다. 세상에서 자기 영이 어느 영계에 속해 살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르고 살다가 자기 육이 죽어서 영계에 가보면 영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판 세계로 가 있다. 그제야 대성통곡을 한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내 영이 좋은 곳에 가겠지.’ 생각하다가 막상 영이 영계에 가보면, 사람도 살지 않고 폐허 지역에 이사 간 자와 같이 자기가 그 같은 환경에 처했음을 알게 된다. 그때 때늦은 실망과 두려움과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그곳에 한번 가면 다시 옮길 수 없다. 거기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 때 제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영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육이 죽은 후에 영이 영계에서 가서 충격 받는 자들이 너무 많다.

4. 세상에서 100% 완벽하게 주님과 함께 살지 않은 자는 죽은 후에 자기 영이 처한 세계가 세상에서 생각한 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영계에서는 절대 행한 대로 받는다. 예외가 없다. 행한 것 이외에 더 받는 것은 한 명도 용납이 안 되는 세계다. 자기가 세상에서 주님을 어떻게 믿고 모시고 살았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무슨 공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자기 영이 속해 있는 영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살아라.

<2011년 5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나 예수를 위해 전심으로 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 예비한 집에 갈 수 있다. (주편)
2.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전심을 다해 산 자, 보통으로 산 자, 자기 생각대로 산 자들이 가는 영계는 각각 완전히 다르다. 세상에서 자기 욕이 산대로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처하게 된다.
3. 천국 안에서도 그 주관권 천국이다. 자기 마음대로 천국의 이 곳, 천국의 저 곳을 다니지 못한다. 이는 세상에서 자기가 행한 공적과 의대로 천국의 위치가 결정되어 살기 때문이다. 자기 공적과 의에 따라 한번 천국의 위치가 결정되면 옮기지 못한다.
4. 세상에서는 자기 실력껏 다른 나라에 가기 원하면 가서 살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간 천국의 그 위치에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 천국에 또 다른 차원의 더 좋은 세계가 있어도 그곳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과도 못 만나다. 주님이 특별히 만나게 해 주시면 만날 수는 있다. 천국 최고 위의 위치에 사는 자들도 천국의 낮은 위치에 가 볼 수도 있지만 잘 안 간다. 천국은 질서의 세계다. 자기가 그 위치에서 발전해도 그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의 발전이다.
5. 이 세상에서 살 때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는 자를 주님은 최고로 치신다. 그런 자의 영이 천국이 가서도 그같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위치로 가서 살게 된다. 천국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지 않는다. 신부 입장의 상대가 있고, 하늘 백성 입장의 상대가 있고, 주님 제자 입장의 상대가 있고, 시종자 입장의 상대가 있다. 그 위치와 삶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이는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이미 결정된 것이다.
6. 세상에서 살 때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주 안에서 같이 형성되면 그 영이 천국에 가서도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된다.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게 된다. 고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행하고 가야 된다.
7. 세상에서 천국의 위치가 결정된다. 천국에 가서 살면서 천국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 천국을 나무로 비유했다. 한 나무에 똑같이 열매가 열렸지만, 각각 열매가 열린 위치가 다르다. (삽화)

<2011년 5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세하고 세밀하게 봐야 알 수 있듯이 자세히 생각해야 알 수 있다.
2. 영적으로 보아야 자세히 볼 수 있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자세히 생각할 수 있다.
3. 성장해야 아름답다.
4. 꽃이 피야 아름답듯이 인생도, 모든 만물도, 존재물들도 성장해야 아름답다.
5. 완전히 성장해야 없는 것이 생기고, 구조와 생김새 전체가 하나하나 아름답고 신비롭고 조화롭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100% 아름답다. 신앙도 그러하다.
6. 커야 웅장하고 크게 느껴진다. 작으면 작게 느껴진다.

<2011년 5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신이 되어 살아야 된다.
2. 세상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따라 만족하고 끝나지만, 하늘나라는 줄 것 다 주고 만족하게 해 주기 때문에 만족한다.

3. 아름다운 것은 같은 것이 반복되어도 영원히 아름답다. 화산이 터져 폭발되는 것을 계속 봐도 웅장하고 아름답듯이 성령님의 아름다움도 그러하다.

4. 아름답고 맛있는데 질리고 싫어지고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무리하게 좋아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한계를 넘으면 탈선이다.

5. 냄새를 눈으로 맡을 수 없고, 맛을 눈으로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신기함과 오묘함은 육의 세계 만물로나 사람으로나 보이는 물질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이는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을 어떤 물질로 만들어 표현하지 못하고 영으로 느껴서 표현하듯이 하늘나라는 저마다 느껴서 알아야 된다.

6. 어떤 형체를 만들어 그것으로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 사랑은 몸으로,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신경으로 느껴야 다 알고 느끼게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영으로,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느끼고 알아야 느낄 수 있다. 말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세상 표현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므로 영은 오직 영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관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2. 걷지 못하는 아기를 세워 놓고 손을 떼면 넘어지듯이, 스스로 서지 못하는 생명에게 관리의 손을 떼면 넘어진다.

3. 자전거를 타고 서 있으면 넘어지듯이, 인생도 가야 할 길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다. 인생은 가야 할 길을 전진하고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다. 신앙도 중단하면 넘어진다.

4. 역사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나 전진과 도약이다.

5. 생명을 관리하는 자는 관리 대상자의 심정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관리해 줘야 된다.

6. 좀 큰 자들은 관리해 주고, 어린 자는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넣고 기르듯 길러야 된다.

7.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자는 옆에서 제대로 하도록 코치해 줘야 된다.

<2011년 5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애인은 같이 사나 떨어져 사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마음과 생각의 차원에 따라 사랑도 좌우된다. 아무리 육이 옆에 있으면서 껴안고 살아도 마음이 식고 마음이 떠난 사랑은 맛없는 음식과 같고 영양가 없이 배만 부르고 마는 음식과 같다. 주님과 우리 사이도 그러하다. 고로 인생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2.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지구 세상 어디에 있든지 마음과 생각에서 잊지 않고 항상 사랑하고 모시고 감격하고 사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육과 같이 사는 자다. 사람은 같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3.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떨어져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평소에 늘 마음과 생각으로 교통하며 살지 못하면 육체가 옆에 살아도 그 사람과는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4. 마음과 생각이 죽은 자는 그 영도 육도 죽은 자와 같다.

5. 마음과 생각이 기쁘게 사는 자는 육체는 물론 세포까지 산 자다. 마음과 정신이 살아야 사랑을 줘도 느끼고, 하나님

과 주님의 사랑도 느끼고, 성령님의 역사도 느낀다. (지금 이때 사랑할 자를 마음과 생각에서 잊지 말고 관심을 두고 살아라.)

<2011년 6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마음과 생각은 마치 몸의 신경과 같다. 신경 기능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다면 애인이 사랑해도 못 느끼고 껴안아 줘도 못 느낀다.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이 죽은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사랑해 주셔도 못 느낀다. 고로 인생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 절대적인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놓고 살지 않으면 절대 인생을 제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
3. 지구 세상 인생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에 거의 인생을 실패하고 죽는다. 육체덩이만 잘 먹고 잘 입고 영화롭게 산 것은 육체덩이 성공이다.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성공했는지 봐야 된다. 인간의 육신의 삶이 영혼과 일체 되어 있다.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사랑함으로 영이 구원받고 기쁨으로 천국에 가서 살아야 영원히 잘되고 인생 성공한 자라 할 수 있다.
4. 인생 80~90년은 일순간인데 그 기간에만 잘되고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여 영원히 고통당하고 멸망 받으면 육신도 실패한 인생이며 그 영혼도 영원히 실패한 인생이다. 인생을 알고 살아라. 육신 일생, 영원한 기간이 비하면 1초의 짧은 시간이다. 1초 동안 육신이 잘된 것이 무슨 성공이나. 육신 일생 1초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계산을 못 하고 사느냐.)

<2011년 6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인생 구원 못 받고 자기 영혼 구원 못 받고 산 자는 빈부와 귀천을 막론하고, 또 아무리 세상에서 왕을 살아 먹고 지구 세상을 흔들고 명예가 우주의 별들까지 흔들었어도 그는 인간으로서 짐승같이 살고 끝난 것이다. 지옥에 가서 자기가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보면 마치 진수성찬을 한 번 먹고 온 것같이 생각되고,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지옥의 괴로운 고통 때문에 생각도 나지 않는다. 나와 같이 그 지옥을 가서 보고 왔다면 우주를 선물로 줘도 안 받고, 오직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면서 이 일을 세상에 가르쳐 주며 하나님의 뜻만 위해 살게 된다.
2. 지옥은 단 1분만 고통을 받아도 세상에서 평생 고통 받은 것보다도 더 괴롭다. 한 번 생각해 보아라. 뜨거운 불속에서 육신의 살이 타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그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누가 칼로 자기 배나 얼굴을 계속 찌르고 있는데 자기는 죽기 직전까지 그 모습을 다 보고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자기 최고 원수인 악마 같은 자가 자기를 묶어 놓고 살을 칼로 회치듯이 계속 깎아내는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죽지 않는 상태에서 연속 받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지옥에서는 그 같은 고통이 죽지 않고 영원히 연속된다. 그러니 세상에서 육신이 잘되고 잘 사는 데만 신경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믿어도 형식으로 믿어 그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느냐, 세상에서 힘들어도 고생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축복받고 살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낫겠느냐.
3. 어떤 사람은 세상 이성의 쾌락으로 육의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을 빼앗기고 그 영혼이 자기 정신과 생각과 혼과 함께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면서 세상에서 일순간 쾌락을 누린 것을 영원히 영원히 후회한다. 지옥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도 일점일획도 그 고통을 감해 주지 않으신다.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 믿으라고 전달하셨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 주셨건만 자기가 믿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외면한 죄 때문이다. 전능자의 말씀을 외면한 죄요, 거역한 죄요, 믿지 않고 사랑해 주지 못한 죄다. 자기 몸은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으로서 하나님의 몸인데, 그 몸을 썩게 썩고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쓴 죄 때문이다.

<2011년 6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 예수님께서 나를 죽도록 사랑해 주신 극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몇 가지 생각이 나지 않으니 신앙의 차원을 높일 수가 없고, 또 글을 쓰고 주님을 증거하는 데 문제이고, 현실에 가슴에 뜨겁게 불이 붙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간절하게 사연을 고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지난날 내가 해 준 것을 잊었으면 생각나도록 자꾸 나를 사랑하여라. 사랑해야 그 사랑 속에 불이 붙어서 지난날 내가 해 준 것이 하나하나 생각나고 영계에 가서 모두 기억나게 된다.” 하셨다.

2. 우리는 예수님께도 부모에게도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다. 생각에서 잊어버린 그 은혜와 사랑이 생각나게 하려면 자꾸 더 사랑하고 생각해야 된다.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결국 버려지게 된다.

3. 평소에 몸이 떨어져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잊고 사는 자는 절대 사랑이 되지 못하는 자격 상실자다. 몸이 보일 때만 생각하는 자는 정신이 병든 자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에서 잊고 사는 자는 모두 정신이 병든 자요, 죽은 자다.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정도에서 나타나시고 보이시겠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람으로 수준 낮게 보지 말아라.

4. 지난날 주님과 그 사랑을 가르쳐 준 자가 해 준 것을 늘 생각하여 잊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는 자만 엄청난 손해다.

5. 지난날 주님과 그 사랑을 가르쳐 준 자가 해 준 것을 잊고 살면 그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결국 광야 사막 같은 마음이 되고 쓸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

6. 지난날 사랑해 준 것과 도와준 것을 잊으면 남남이다.

7. 지난날 해 준 것을 잊은 자는 건망증자요, 치매 병자다. 자꾸 생각하여라.

<2011년 6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행복이 자기에게 오는데 죄를 지어 행복이 도망가게 한다.

2. 생각으로 죄도 짓고, 생각으로 의도 행한다.

3. 생각하지 않으면 죄도 행하지 않고 의도 행하지 않는다. 고로 생각을 다스려 의를 생각하고 의를 행하여라.

4. 마음과 생각을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활동하게 할 수도 있다. 불의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다스리는 자다.

5. 자기 인생에 불만을 품다가도 자기보다 못 하고 불행하게 사는 자를 보면 자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불만이 떠나간다.

6.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밑에 있는 자를 생각하고 쳐다보아라. 자기 인생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자기 위에 있는 자를 생각하고 쳐다보아라. 항상 앞서 가는 자를 쳐다보아라.

<2011년 6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후에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된다.

2. 사람들은 ‘선물’ 하면 보이는 물건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선물은 물질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다.

3.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밝아지고 정신이 밝아져 자기를 깨닫고 볼 수 있게 된다.
4. 성령을 받으면 자아가 없어진다. 육성과 육의 생각들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5. 주님께 수시로 사랑 고백을 하여라. 세상에 빼앗긴 마음과 정신을 다시 모아 주님과 일체 되어 사탄도 불의도 다 물리치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6. 사탄을 다스리고 주관해야 의의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2011년 6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자기를 지키는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자를 찾는다.
2. 사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지은 자를 찾는다.
3. 믿음의 성벽이 완벽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이 찾는다.
4. 사탄은 서운함과 소외감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자를 찾는다. 고로 빨리 주님을 부르고 그 늪에서 빠져 나와야 된다.
5. 사탄은 마음의 성벽과 행실의 성벽을 쌓다가 만 자를 침범하려고 찾는다. 기도와 감사와 말씀과 믿음에 완벽하여 사랑을 주를 대하는 자는 바로 마음의 성벽을 하늘같이 쌓아 올린다.
6. 마음의 성벽은 하늘까지 쌓아 올렸다가도 순간 무너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면 순간 다시 쌓는다.
7. 절대 믿음을 지키고, 누구의 유혹도 받지 않고, 절대 주님을 사랑하면 순간 하늘까지 높은 마음의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된다.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저마다 홀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조종사와 같다. 자기 육신이 비행기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삶의 행실로 자기 육을 조종해 가는 것이다.
2. 생명은 생명으로 끝내야 한다. ('생명은 살리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라는 말이다.)
3. 생명을 사망으로 끝내면 영원한 고통이다.
4. 생명은 생명의 길로 가야 영원히 생명의 세계로 끝난다.
5. 세상의 길은 돈이나 보석이나 재물로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면 늦더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의 길은 돈으로도, 백으로도, 보물로도 충당이 안 된다. 무엇으로도 시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오직 자기 시간을 들여 총력을 다 해가야 된다.

<2011년 6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실천하는 데까지만 산 것이다. 가령 새벽 3시에 기도하고 저녁 9시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3시에는 기도하고 저녁 9시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저녁 9시까지만 산 것이다.
2. 실천했어도 외식과 형식으로 산 것은 산 것이 아니다.

3. 주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산 것이다.

4. 산삼을 캐러 간 자가 산삼을 캐 와야 돈이 되지, 잡초를 캐 오면 돈이 안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의가 되어 영혼이 변화되고 공적이 된다. 자기 욕성으로 행한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고로 영에게 도움이 안 되고 공적이 안 된다.

5. 의롭게 산 것만이 의로 여긴 바가 된다.

6. 하나님 주권권 안에 의가 의지, 하나님 주권권 밖에 의는 의가 아니다.

7.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의를 행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의가 되지 못하여 하나님은 의로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불의가 되기 때문이다.

8. 하나님과 주님과 연관되지 않고 관계없는 삶은 모두 무로 사라지고 만다.

<2011년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금요일 새벽잠언

1. 깨닫게 해 준 것이 육의 눈으로 보여 준 것과 같다.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알도록 보여 달라고 기도할 때 주신 잠언)

2. 인간은 물질이다. 잠을 안 자면 피곤해서 인생길 못 간다.

3.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인생길 새벽부터 일찍 가는 것이다.

4. 깨닫게 한 것이 눈으로 보여 준 것이다. 눈으로 봐어도 깨닫지 못하면 보나마나다. 의식 없이 본 것은 봐어도 모른다.

<2011년 6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주인 의식을 잊지 말아라.

2.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짓듯이, 기둥 같은 자를 전도해야 생명의 집들을 짓게 된다.

3. 생명을 전도한 후에는 관리다. 전도된 자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형식으로 다니는지, 그냥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다니는지 철저히 관리하여 뿌리를 박게 해 주는 것이 관리다.

4. 마른 양도, 살찐 양도, 어린 양도, 큰 양도 다 주인의 양이다. 고로 먹이고 기르고 야수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다 지켜야 된다. <예수님 설명> “모두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귀하다. 고로 모두 귀하 대해 주여라. 어린 양도 크면 큰 양이 되듯 어린 생명도 귀하고, 외모와 키와 외적인 조건들을 떠나 모든 생명들이 다 귀하다.” (하시며 주신 잠언)

5. 양들은 야수들에게 잡아먹힐까봐 두려워하지만, 야수들은 목자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한다. 고로 목자는 야수들을 의식하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라.

<2011년 6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집이 커야 크고 웅장한 옷장과 소파와 가재도구를 사다 놓을 수 있다.

2. 신앙의 집이 커야 크고 웅장하게 꾸미고 신앙의 가재도구들과 보물들을 사서 갖추 수 있는 것이다.

3. 신앙의 집은 ‘시간’이다. 작은 시간을 가지고서는 크고 웅장한 일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 많은 시간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자는 신앙의 집도 크게 짓고 살고, 신앙의 보물도 크게 얻고 살게 된다.

4. 영계에 갔더니 주님께서 하나의 큰 집을 보여 주셨다. 그 집에는 웅장한 물건들이 있었다. 옷장과 응접실의 의자와 소파 등 가구들이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초라한 집도 보여 주셨다. 그 집에 사는 자는 돈이 있어서 큰 물건을 사다 놓고 싶었지만 못 사다 놓았다. 집이 작은 초가집이라서 웅장한 물건들을 사다 놓을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꿈에 이같이 보여 주시기에 기도했다. 이때 주님은 깨우쳐 주시기를 “집은 나를 위해 쓰는 기도 시간이며, 웅장한 응접실 가구 세트와 옷장과 가재도구는 기도함으로 나로 인해 얻는 것들을 말한다.” 하셨다.

<2011년 6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이 간절히 원하고 구하는 것만 해 주신다. 온 인류에게 이 같은 비밀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지구 세상 70억의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쉽게 다스리신다. 구하는 자에게만 해 주시기 때문이다.

2. 간절히 원하며 간구하는 자는 아주 적다. 아마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이 다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도 아주 바쁘실 것이다. 오직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를 돌아보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다. 고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인간 스스로는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 구하지 않고서는 천국에도 갈 수 없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고로 하나님 앞에 꼭 구해야 된다.

3. <하나님> “나는 나에게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대답하고 그 기도예 따라 해 준다.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해 줄 필요가 없고, 말하지도 않는 자에게 대답해 줄 필요가 없는 격이다. 나의 법은 내게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행해 주는 것이다. 간절히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의 손이 안 간다. 그러니 정말 구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 고로 열 일 제치고 구하여라.”

4.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 십자가를 저 주셨어도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만 구원하려고 역사하신다. 또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 외에 뜻이 있는 자라면 합당하면 주기도 하시지만, 주께 구하지도 않고 주를 생각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주께 구하는 것이 주를 생각하는 것이다.

5. 인간이 구하지 않았는데 지구 세상 70억 명이 필요한 것을 다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신이라도 바쁘실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구하는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다.

6. 구할 때 왜 주시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으니 주시는 것이다.

7. 자기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을 구해야 된다.

8.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테니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9. 주님은 사람이 주 앞에 행하는 대로 대하신다.

10. 사람이 배우고 아는 대로 대해 주시고, 나이대로 대해 주시고, 저마다 주님을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신다.

<2011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것은 간구의 응답이다.

2.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이 예수님을 비웃고 야유한다.
3. <예수님> “나 예수에게 마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신앙이 죽어 섭리사에서 시체 되어 세상 무덤에 묻히게 된다.”
4.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면 누가 구원하겠느냐. 나 예수가 구원해 줘도 자신이 자신을 구원해야 된다.
5. 자기 혼자 있어도 절대 할 일을 해야 된다. 애인이 있어도 해야 되고, 따르는 청중이 있어도 해야 된다. 자기가 절대 할 일이란? 이는 주님께 사랑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밥 먹는 일이다. 잠자는 일이다. 옷 입는 일이다. 목욕하는 일이다. 숨쉬는 일이다. 병을 고치는 일이다. 화장실 가는 일이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의를 행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말씀을 듣는 일이다. 감사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구원에 해당되는 일이다. 메시아를 믿는 일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자기 사명으로 옥에 갇히는 일이다. 자기 사명으로 희생하는 일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자기 영의 휴거를 위해,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일이다. 자기 건강을 위해 자기가 주님의 신부로서 운동하고 뛰며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다. 옆의 애인이 대신 뛰어 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나. 자기 할 일과 책임분담을 남이 해 준다고 안 하면 바로 자기 육이 죽고 영이 죽는다. 수백 가지 자기 책임분담은 혼자 있어도, 옆에 애인이 있어도, 따르는 청중이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된다. 모두 행동, 실천, 책임분담에 영웅이 되어 살아라. <삽화> -책임을 하는 자 : 적당하게 근육과 살이 붙어 아름다운 모습 -책임을 못 하는 자 (남에게 시키기만 하는 자) : 비쩍 마른 모습 -남의 일을 대신 해 준 자 : 영과 육이 건강한 모습

<2011년 6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쁨’은 마음의 천국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서 영원하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지요, 육적이고 자극적인 기쁨이다.
2.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로 인하여 기쁨이 온다.
3. 감사는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한다.
4. 원망, 짜증, 불만은 마음에서 지옥의 고통을 일으킨다.
5. 네 생각만 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지만 말고, 주님이 계시니 주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주께 물어보아라.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주님께 물으면 항상 실망이 없다.
6. 주안의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온다. 주님은 사망에 매이지 않으시고 천국이시다. 주님은 기쁨의 본체이시다. 고로 주님과 일체 되어야 기쁨이 온다.
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다.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다. 이로써 진정한 사랑이 불타 주님과도 형제들과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2011년 6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떠나는 시간이 늦으면 도착하는 시간도 늦는다.
2. 같은 위치에 1초 늦게 쏜 포탄이 1초 빨리 쏜 포탄보다 먼저 터지지 않는다. 너희는 하늘의 정한 시간을 지켜라. 기도 시간을 지켜라.
3. 하늘의 정한 기도 시간을 지켰을 때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고, 안 지켰을 때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다.
4. 시간에 따라 차원이 다르니 기도할 때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도 다르다.

<2011년 6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영들은 세상 시간에 갇혀 살지 않는다.
2. 자기 욕심이 시간을 못 지키면 그 영도 시간을 못 지킨다.
3. 시간을 다스려야 시간에 매여 살지 않는다.
4. 영은 시간을 초월하여 사니 영적으로 살아라.
5. 영에 속해 신령하게 사는 자는 신령하게 판단하여 해를 당하지 않고 얻을 것을 얻는다. 또한 영에 속해 신령하게 사는 자는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적은 시간도 많은 시간처럼 쓰며 시간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
6. 필요 없는 시간을 쓰고 살면 80~90년을 살아도 인생 시간을 실속 있게 쓰지 못하고 50년도 제대로 못 쓰고 죽는다.
7. 필요 없는 시간을 쓰면 온종일 뛰어도 바쁘고 할 일을 다 못 한다.
8. 필요한 것만 하고 살면 인생 80년만 살아도 마치 150년 산 것처럼 실속 있게 살아서 당세에 많은 일을 하고 죽는다.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네가 나와 어떤 것을 약속해 놓고, 거기에 눈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쏟으면서 지키려고 결심하고 행해야 지키게 된다. 시간을 넉넉히 지켜라.
2. 옷이 작으면 불편하듯이,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3. 먹을 것도 적어서 부족한 것보다 풍부해야 마음 졸이지 않고 풍족하게 먹듯이, 시간도 풍성하게 두고 행해야 마음 쫓기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행한다.
4. 경쟁을 놓고 행하는 자가 시간이 부족하면 패하게 된다.
5. 시간에 인색하지 말고, 마음 인색하지 말고, 행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6. 풍부하게 투자해야 풍부하게 거둔다.
7. 먼 길 갈 때 1분 늦게 떠나면 그까짓 1분이야 빨리 뛰어가면 금방 따라잡지만, 내 시간은 1분 늦으면 뛰어가도 안 된다. 늦은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 그 시간을 채우느라 내가 말한 다른 것에 시간을 쓸 수 없고, 1분 늦게 하면 1분 동안 내가 한 말을 못 들어서 기록하지 못한다.

<2011년 6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는 '시간은 금'이라고 하지 않느냐. 세상은 물질을 귀히 여기기에 시간이 금이라고 말하니 이해가 빨리 되고 시간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또한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돈은 값이 있으니 그렇게 비유하여 귀한 것을 깨우쳐 준다. 나 예수는 '시간은 생명'이라고 말한다. 나는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에 이같이 말한다. 시간이 생명같이 귀하다 함이다. 고로 너희는 시간을 생명같이 귀히 써라.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2. 어떤 일은 시간이 늦으면 죽기도 한다.
3. 늦게 하면 지옥 고생을 하기도 한다.
4. 너희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는데 시간 늦게 발견하면 죽지 않겠느냐.
5. 너희 각자에게 정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6. 늦게 한만큼 빨리 뛰어 구원을 이루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쉬운 게 아니다.
7. 사람이 일을 해 보면 너무도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8. 일찍 하고 여유 있게 충분히 모든 것을 이루어라. (아무리 정한 시간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미리 하여 여유 있게 충분히 모든 것을 이루어라.)

<2011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자는 시간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을 누가 팔고 있느냐. 거저 선물로 주는데도 자기 시간 다 쓰느라 구원 못 받는다.
2.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지옥 고통을 안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인생들이 확실히 안다면, 세상 그 어떤 일이고 다 뒤로 제쳐 놓고 가장 먼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쓸 것이다.
3. 어떤 사람은 평생 지옥 갈 일을 하고서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면 그제야 ‘왜 내가 여기 왔는가?’ 한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에 또 하나의 지옥의 고통이 온다.
4. 지옥 가서도 나오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서도 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5. 인생 모르고 산다.
6. 어떤 사람은 그 삶 자체가 날마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육신의 향락과 기쁨에 취해 살면서 “나는 행복해. 내 삶은 보람 있어.” 하며 살고 있다. 이같이 인생은 자기 영혼에 대해 모르고 살고 있다.
7. 아는 자가 외쳐 주고 말해 줘야지, 말 안 하면 모른다.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지옥 가는 자는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 가는 자는 천국을 긍정하며 시인한다.
2.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지옥을 부정하는 것이며,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믿고 긍정하며 시인하는 것이다.
3. 인생 앞에 두 길이 있다.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흑암으로 가는 길과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4. 어떤 인생이든지 두 길 중의 한 길을 가고 있다.
5. 나 예수가 없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흑암의 길이다. 그 길에서 내가 보이는지 한번 보아라.
6. 나 예수가 있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그 길에서 내가 보이느냐. 내가 너에게 역사하고 있느냐.

7. 나 예수가 보일 때까지 느껴 보아라. 나 예수가 너와 함께할 때까지 내 말에 충성하고 전심으로 행하여라.

<2011년 6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나 예수를 믿다가 만 자들은 정말 나 예수를 잘못 보았다. 잘못 알았다.

2. 가르쳐 주는 자가 제대로 모르니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배우는 자가 나 예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배운 것이다.

3. 나 예수는 전능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자다. 나를 세상 그 어떤 성현에 비하느냐. 육신인 세상 왕들이나 영웅들에게 나를 비하느냐. 하늘 땅 수천억의 생명들을 주관하고 지옥, 음부, 무저갱의 악한 영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전능자인데 나를 세상 왕에 비하고 어떤 성현에 겨누겠느냐.

4. 너희는 나를 알고 대하고 믿고 모시고 진정 사랑하여라.

5. 나는 너희에게 잘 나타나지 않고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혹은 보여 주더라도 너희 급에 해당되게 나의 영을 보여 준다.

6. 온 세상에 일순간에 나를 보여 주는 능력이 내게 없겠느냐. 보여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 보여 주지 않고, 나의 뜻이 있는 고로 아무에게나 보여 주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라도 나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고로 너희는 사명자를 통해 나 예수를 비취 보고, 나 예수가 합당히 쓰는 자의 육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취 보아라.

7. 천사들도 사역하기 위해 너희 옆에 늘 따라다닌다. 천사들이 너희 옆에서 5년, 10년, 20년 동안 살아도 너희는 천사를 못 보고 있지 않느냐. 천사가 없어서가 아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나 예수의 명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 옆에 1초도 쉬지 않고 항상 붙어서 지키고 있다. * 알고 나를 믿고, 알고 나를 대하고, 알고 나를 모시고, 알고 나를 진정 사랑하여라.

<2011년 6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영은 영으로 보고, 육은 육으로 본다.

2. 너희가 영을 볼 수 있는 차원에 이르렀을 때 나 예수가 합당하면 보여 준다. 천사들은 항상 너희의 수호천사가 되어 지키고 있다.

3. 영의 눈으로 보면 천사가 육신보다 더 또렷하게 보인다. 영의 몸이 영을 보기 때문이다.

4.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면 각 교회와 각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시간에 그 말씀을 듣게 된다. 이와 같이 나 예수는 같은 시간에 각 교회에 각 사람들을 모두 보고 돕는다. 나는 신이다. 전능자다. 100명을 한 자리에서 두 눈으로 한꺼번에 보듯이,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한 번에 보고 돕는다.

5. 이 세상에서도 한 곳에서 방송하면 같은 시간에 수백 만, 수십 억 곳에서 보고 듣지 않느냐. 나는 영으로 행하니 인원수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같은 시간에 지구촌 전체와 천국까지 다 보고 말한다.

6. 너희도 신령한 자가 될수록, 또 영적으로 행할수록 한 번에 많은 것을 동시에 보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너희도 영적인 자가 되어 영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수천 배 많이 보고 많이 행하게 된다.

7.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나 예수와 함께 행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느냐.

8. 풍부하게 넉넉하게 하도록 나 예수와 함께 행하여라.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나의 손발이 되어 행하여라.

<2011년 6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마음 따라, 몸 따라 행한다.
2. 욕심은 보고 듣는 데서 좋으면 마음에 받아들인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행할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한다.
3. 판단력이 강해도 실천력이 약한 자는 쉽게 실천이 안 된다.
4. 실천자는 생각하는 데 약하나, 실천하면서 판단하며 전진한다.
5. 실천자는 '행위'로 확인한다.

<2011년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실천자만이 그 차원과 그 세계를 안다.
2. 실천은 얻게 하고, 또 다른 행할 세계를 발견하게 한다.
3. 행하지 않으면 다리가 저리고 몸이 굳고 저려온다.
4.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행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죽은 것이다.
5. 내가 행하면 살아난다.
6. 실천을 늦게 하면 영감도, 생각도, 얻을 것도 모두 날아가 버린다.
7. 생각과 실천은 남자와 여자로, 사랑의 행위와 같다. 고로 함께 있어야 한다.

<2011년 6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행해야 잊은 것도 생각나고, 할 일도 생각난다.
2. 실제 변화는 행동하는 데서 일어난다.
3.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행하여라. 그래야 아름답다.
4. 천국은 실천자만이 간다.
5. '구원'은 실제로 그 영과 육이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이동되는 것이다. 고로 실제 움직여 행해야 된다.
6. 모두 마음은 희망에 차고 넘치나, 행동은 밑바닥에 깔려 있다. 행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자기 것이 된다.

<2011년 6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고통 받을 때 고통의 글을 쓰고, 영광스러울 때 영광의 글을 써야 제대로 느껴 글이 써진다.

2. 보일 때 보아라. 들릴 때 들어라. 때는 그 순간이다.
3. 음식은 시간이 갈수록 맛이 변하고, 영감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진다.
4. 하늘에 솟는 위대한 말씀은 땅에는 없다. 모두 별처럼 하늘에 있다. 고로 받아야 된다.
5.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 그릇대로 답을 주신다.

<2011년 7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은 좋으나 주님의 뜻은 아니다. (결재해 달라고 목적 좋게 보고한다. 그러나 다 안다.)
2. (주편) 생각한 것을 나 예수와 함께 판단하고 실천하여라.
3. 주의 뜻을 실천하면 뜻을 이룬다. 그러므로 주와 동행하여라.
4. 주는 어느새 나와 동행하시고, 어느새 떠나신다.
5. 육신은 일을 많이 하고 쉬어야 편하다. 그러나 일도 안 하고 쉬면 몸이 굳어지고 고통이 온다. 고로 일하면 풀린다. 일은 운동이다.
6. 배고플 때 먹어야 제 맛이 난다. 이와 같이 고통과 환난 중에 더욱 주의 사랑을 느낀다.

<2011년 7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실천 체력은 강인한 체력이다.
2. 내가 실천하지 않았으면 인생만 늙고 얻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3. 한 가지에만 빠지면 그 한 가지를 얻으려다가 여러 가지를 뺏긴다.
4. 인간은 장단점 속에 다 얻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간다.
5.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다 얻는다. 고로 너의 맘은 주님의 맘이 되고, 너의 몸은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한다.
6. 주님은 내가 시간 약속을 지키면 부담 없이 말씀을 주신다.

<2011년 7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편> 나와 약속한 시간에 미리 와 있으니 내가 기다리지 않고 애타지 않으니 얼마나 좋으냐. (약속 시간을 지키니 주님이 하신 말씀)
2. 주와 약속한 시간 전에 와서 주를 마중 나와 기다리며 안내하면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된다.
3.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평소에도 주를 맞는 것이 주 맞음에 예비한 자이며 시간에 예비한 자다.
4. <주편> 평소에 나 예수와 약속한 시간을 수십 번씩 지키기를 반복하며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을 연습하여라. 모든 삶을 그렇게 하면 나의 재림을 예비한 자가 되고,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된다.

5. 마음과 행실의 일체다.

6. 내 마음과 행실을 주님과 약속한 대로 일체 시키니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주와 동행하게 되었다.

7. 주님을 믿고 살면서 저 하늘의 태양처럼 변함없이 살고, 시계처럼 정확히 시간을 지켜 살아야만이 주님께서 나를 그의 손발로, 몸으로 삼으시고 뜻을 펴며 행하신다.

8. 주님의 뜻을 매일 범사에 행해 보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알고서 전심으로 행하려 한다. 역시 실천이다.

9. 주님의 뜻을 행한 자만이 주님의 귀한 뜻을 확인하고 알게 된다.

10. 사람은 자기 차원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11. 자기 정신 차원, 영의 차원대로 가는 영의 세계다. 자기 행위대로 가는 육의 세계다.

<2011년 7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약속한 시간이다. 그 어떤 것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분명히 그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 약속 받은 것도 받지 못한다. 주님은 각자의 행위대로 행하시기에 우리가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주님도 약속한 것을 안 지키신다.

2.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아라.

3. 주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되고, 지키는 사람은 분명 잘된다.

4.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한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강림하셨다. 그 영이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강림하셨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육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도 못 맞았고, 메시아가 육의 눈에 보이게 왔어도 못 맞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에 하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어도 못 맞았듯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메시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도 못 맞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가 와도 못 맞는다.

5. (무슨 약속인가?)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다. 그런데 말만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의 최고의 말씀은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였고,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여라.”였다. 그런데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고로 형제 가운데 육신 쓰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못 맞았다. 육의 눈에 보였으나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전혀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 말씀도 듣지 않으니 새 역사가 왔어도 전혀 몰랐다. 그러므로 그 육신을 쓰고 강림하신 하나님도 못 맞았다.

6. 이 시대도 구시대 기성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경대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못 보고 모르는 것이다. 주님이 시대 사명자의 육을 쓰고 나타나셨는데도 육의 눈이 있어도 모르는 것이다. 이는 첫째,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음으로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로 주님이 오셨어도 주님을 못 보고 모르는 것이다.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시대를 따라 신령하게 나타나신 주님을 못 보고 모르는 것이다. 둘째,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말로만 지킨다고 약속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땅을 향한 하늘 최고의 법을 못 지켰기에 주님이 땅의 사명자를 통해 나타난 것을 모르는 것이다. 땅의 사명자를 통해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육신의 눈만 뜨면 다 보는데,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보면서도 모르는 것이다. 주님은 재림을 앞두고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에 다 행하셨다. 그러나 주님을 믿어도 주님과 약속을 안 지킨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살고 있다. 육의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영의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있다. 약속을 안 지키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볼 수가 없다.

7.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약속한 기도 시간과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주님은 약속한 자에게 축복도 주시고, 표적도 보이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

8.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4개월 만에 지켰다. 그동안 주님이 맡기신 일 때문에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못 지켰다. 계속 주님이 맡기신 일만 하다가 주님과 약속을 못 지키게 되어 일주일 전부터 극적으로 기도하고 행하다가 어제와 오늘은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온전히 지켰다. 어제는 약속 시간보다 5분이 늦어서 시간에 대한 잠언을 받았다. 오늘은 4개월 만에 정확히 약속을 지켰더니, 주님은 약속의 인봉을 떼 주셨다. 주님과 약속이 이렇게나 중하다. '하나님을 맞느냐, 못 맞느냐. 주님을 맞느냐, 못 맞느냐.' 하는 영계의 깊은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이 잠언들을 쓰게 계시해 주셨다.

9. 주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천국도 못 간다. 엄한 형벌을 받는다. 그동안 주님과 약속을 못 지킨 것은 아무리 공적 일을 하면서 못 지켰을지라도 이같이 큰 죄임을 알고 회개했다.

10.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주님 앞에 무엇을 못 받고, 무슨 복을 못 받는지 모른다.

11. 주님과 약속을 지킨 자만이 각자에 해당되게 주님께 받으니, 약속을 지킨 자만이 주님께 무엇을 받는지 알게 된다.

12. 행한 자만이 거기 해당되는 말씀을 받고 얻을 것을 얻게 된다.

13. 주님과 약속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이므로 모든 것이 죽은 자에 해당되는 것만 받게 된다.

14.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다른 것을 못 해서 손해가 갈 지라도 먼저 지켜야 된다.

15. 하늘 앞에 약속하고 안 지킨 자는 거짓말한 자요, 속인 자다.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가 되어 성경대로 하늘 주관권 밖, 천국 성 밖에 있게 된다.

16.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국의 큰 도성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은 땅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살았다. 고로 그가 세상 육의 삶을 끝냈을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성을 받아 거기서 살고 있다.

17.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약속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약속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은 주신다.

18. 예수님께서 신약역사 때 약속한 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약속을 실행하실 때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

19. 성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고로 그 약속한 것을 받아도 당사자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

20.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영으로 강림하셨으나 못 보았고, 메시아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으나 육의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보고 못 믿었다. 이 시대도 주님의 약속 말씀인 신약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는 행하지 않음으로 죽은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이 영으로 나타나셔도 모르고, 그 영이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셔도 눈에 보이는데도 죽은 자이므로 못 믿고 모르는 것이다. 역사는 이같이 간다. 현실에도 이렇게 가고 있다.

21. 주님이 재림의 약속을 하셨으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최우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셔도 모른다. 이는 성경의 약속을 안 지켰기에 죽은 자가 되어 모르는 것이다.

<2011년 7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여유 있게 행하신다. 가령 새벽 1시가 기도할 시간이면 15분 전에 깨우신다.
2. 피곤하여 주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에 일어나기 힘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30분 전에 미리 깨우신다.
3. 주는 여유 있게 행하신다. 어떤 일을 신속하게 미리 행하시고 떠나신다. 그러나 사탄들은 후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일을 시킨 자들과 함께 오겠지.” 하고 방해하려고 기다린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행할 자와 함께 일하고 떠나셨다. 사탄은 방해하려고 온종일 기다린다. 그러다 해가 지면 어둠과 함께 사라진다.
4. 미리 하면 사탄의 제재도 안 받고 방해도 안 받고 조용히 묵묵히 다 행할 수 있고 사탄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
5. 주는 미리 하고 떠나신다.
6. 세상도 제재 받는 시간은 일평생 제재를 받는다.
7. 제재 받지 않는 시간은 일평생 제재 받지 않는다. 주님은 제재 받지 않는 시간에 행하신다. 그러나 주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안 하니 제재를 받는다.

<2011년 7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주편>

1. 나 예수와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것을 위해 다른 시간을 자르고,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일은 안 해도 지나고 보면 아무 해가 없다.
2. 나 예수와 약속한 시간을 못 지키고, 나 예수와 약속한 것을 안 하면 해가 된다.
3. 나의 재림을 놓고 준비하는 데 우선권으로 시간을 써라. 육에 속한 것들은 자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많다.
4. 평소 하는 습관으로 인하여 육은 육성에 의해 육의 것이 자꾸 하게 된다. 육에 속한 일은 육성에 끌려 하게 된다. 고로 독백이 물려고 할 때 자르듯 육에 속한 일은 과감히 잘라야 된다.
5. 나의 재림의 때를 미리 준비하고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그러므로 나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 맘을 먹고 수십 번, 수백 번 도전해야 된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6. 육성을 자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육성 때문에 영에 속한 일과 나 예수와 약속한 일들이 쉽게 안 해지는 것이다.
7.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빨리 그 일들을 하고 난 후에 나 예수와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 하면 못 한다. 일은 하다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고로 하루의 일 중에 몇 가지는 아예 하지 않고서라도 나와 약속한 시간, 정한 시간을 써야 한다.
8. 너희는 나 예수의 재림을 놓고서 세상 일을 부지런히 해 버리고 나서 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런 자는 온전히 준비하지 못한다. 육에 속한 일 중의 몇 가지를 아예 하지 않고, 그 시간을 가지고 나 예수와 약속한 일을 해야 된다. 육에 속한 것 중에서 아예 잘라야 할 몇 가지 일이 무엇인지 너희 각자는 알 것이다. 너희는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느냐. 그것 몇 가지를 자르고 나와 약속한 것을 하여라.
9. 이 시대 나의 섭리사를 위해 예비했던 자도 육적인 일, 곧 먹고 입고 자는 것과 생활에 해당되는 모든 일을 다 자르고 오직 내게 배우면서 준비하고 나왔다. 그같이 하여 나 예수를 맞은 것이다.

10. 다 버려야 얻을 것을 얻는다. 이 말을 진정 믿고 행하여라.

<2011년 7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줄 당기기 힘들고 시간 당기기 힘들다. 생명의 줄이기 때문이다.

2. 너와 맞서 생명의 줄을 당기는 저들은 사탄이다.

3. 사탄은 너와 나와 약속한 정한 시간에 생명의 줄을 당겨 끌어가려고 오전부터 연습하고 궁리하고 버르고 결심하고 이를 갈며 승리를 다짐하고, 오늘 너와 내가 정한 약속 시간을 기점으로 놓고 당긴 것이다. 네가 오늘도 이겼다면 하마터면 끌려 갈 뻔했다.

4. 내일은 마지막으로 천적 사탄들과 줄을 잡아당긴다. 놈들 생명줄 잡아당기듯 해야 한다.

5. 시간의 줄 당기기다. 시간 뺏기면 표적을 일으키지 못한다.

6. 시간 뺏으면 생명도 뺏는다.

7. 시간 뺏기면 내 생명도,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도 뺏긴다.

8. 시간을 뺏으려면 상대편 시간에 내 시간을 쓰지 않으면 된다.

9. 내 시간은 주를 위한 시간으로 써야 시간을 빼앗아 생명도 뺏고, 그 시간에 모든 원하는 것들을 뺏는다.

10. 시간을 하늘 시간으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11. 시간 뺏기는 자는 할 일 못 해 패한 것이다.

12. 여기저기에서 시간을 빼내서 하늘의 정한 시간으로 써라.

13. 시간 뺏으면 사탄은 일방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2011년 7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혼은 육신을 쓰고 나타난다.

2. 하나님은 강하게만 나타나지 않으시고 은은하게도 나타나신다.

3. 줄 때 받아라. 네 생각을 통해서 준다. 네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다.

4. 큰 일을 두고 큰 시간을 만들어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시간을 매일 틈틈이 내서 시간을 모아서 해야 큰 일이 작은 일같이 해진다.

5. 큰 일이라고 큰 시간을 내어서 하려니 몇 달을 가도 못 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작은 시간은 있으니 작은 시간 매일 내서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셨다.

6. 주님은 일을 맡겨 놓고 매일 일하는 능력을 보신다. 일의 지혜다. 일의 방법이다. 일을 맡기신 주님께 계속 물으셔서 해야 불가능 없이 하게 된다.

7. 일은 순서를 바꿔서 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일의 열정이 식는다.

8. 일은 이것 했다가 저것 했다가 하면 그 일에 지혜가 삭감되어 완전하게 할 수가 없다.

9. 예수님은 이 세상 70억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또 각 단체와 모임들을 다 보신다. 고로 70억의 사람들을 통해 받는 영의 고통이 얼마나 많겠느냐. 매일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머리를 식혀 주는 자가 되어라.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과 정한 시간에 아주 여유 있게 가는 자가 착오 없이 시간을 지킨다.

2. 날아가는 자도 늦은 시간에 떠나면 정한 시간에 못 간다.

3. 어떤 약속한 것을 놓고서는 정한 때가 되었으면 하던 일을 즉시 모두 중지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 전에 하던 일에 더 손을 대서 정리할 것도 없다. 정한 시간을 향해 앞으로 뛰어야 된다.

4. 지혜가 답이다.

5. 일찍 떠나야 시간 전에 일찍 도착하게 된다.

6.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보면 뇌의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낀다. 고로 그것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7. 뇌가 성장된 자, 판단력이 있는 자, 생각하는 것이 높은 자는 항상 무엇을 볼 때 계산한다. 보는 것이 좋은가, 안 보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 판단하고 안 보는 것이 좋으면 즉시 눈을 돌려 딴 것을 보면서 행한다.

8.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TV 예능 프로그램과 연속 속는 연속극이나 보는 자와, 인터넷 게임과 음란물을 보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요, 뇌의 차원과 수준이 낮은 자요, 생각의 정도가 낮은 자들이다. IQ가 높다고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야 되고 생각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9. IQ는 정신과 생각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능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학문에 속한 것을 얼마나 숙달하여 아느냐 하는 것이다. 고로 자꾸 하면 IQ는 발달된다. 사람들은 IQ는 높는데 지혜와 판단력은 낮은 어린아이와 같다.

10. IQ는 학문에 속한 지능이며, 육에 속한 지능이다.

11. 영적인 지능이 높고 생각이 높아야 된다. 인생의 IQ가 높아야 된다.

12. 육적인 IQ가 110이 되든지, 120이 되든지, 130이 되든지 영적인 IQ와는 상관없다. 영적인 것은 위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에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지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정신과 마음과 영으로 받는다.

13. 하늘의 지혜를 받고 행하면 육적 IQ 200, 300에 비교가 안 된다. 전능자의 지혜에서 온 말씀을 듣고 행하기 때문이다. 전능자의 방법과 지식과 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14. 요셉을 생각해 보아라. 이집트의 바로 왕은 꿈을 꾸고 대국의 모든 학자들과 지식인들과 IQ가 높은 자들을 다 동원하여 꿈을 풀게 했다. 바로 왕은 문제를 주면서 그 문제를 해석하여 답을 주는 자에게 왕의 다음 자리를 준다고 했다. 그래도 대국의 온 백성들은 그 답을 맞히지 못했다.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말씀을 받아 말하니 맞

혔다. 이에 요셉은 왕 다음 자리의 권력자가 되었다. 그는 육적 IQ가 높지 않았다. 영적 생각의 IQ가 하늘에 도달하도록 높았다.

15. 세상 지식의 지능과 하늘 지혜의 지능은 다르다.

16. 땅의 지혜는 세상 지식을 배움에서 오고,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온다.

17.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자신이 배우고 누가 가르쳐 주는 것에서 온다. 하늘의 지혜와 지식도 하늘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데서 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데서 온다.

18. 세상의 계절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 맞는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누구든지 때가 되면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주신다.

19. 하나님과 예수님은 순간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지혜를 주시도 하시며 합당하게 사역자로 쓰신다. 순간의 지혜는 '영감'이다.

20. 하늘의 지혜는 구해야 얻게 된다. 자기가 노력하고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때 주신다.

<2011년 7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전능하다. 그 지혜의 가짓수도 수만 가지다.

2.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3. 지혜는 주님의 생각이다.

4. 장단점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5. 모든 것을 다 보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6. 지혜로운 자는 같이 의논하며 하고, 미련한 자는 혼자 다 한다.

7. 미련한 자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고, 지혜로운 자는 두 가지를 보고 양단을 보고 행한다.

8. 모순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9. 해를 받는 일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것이 지혜다.

10. 지혜는 끝까지 간다.

11. 지혜 없이 하면 미련함만 남아 미련하게 일한다.

12. 지혜는 쉽고 간단하다.

13.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14. 재어 보고 비교하는 것이 지혜다.

15. 지혜는 온전한 판단이다.

16. 지혜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

17. 지혜는 온갖 것을 갖춘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미련한 자는 뒤로 물러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지혜로운 자는 산을 넘어가도 앞으로 간다.

2. 미련한 자는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함이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미련함이다.

3. 미련한 자는 하는 것마다 미련하고, 지혜로운 자는 하는 것마다 지혜다.

4. 미련한 자는 지혜자가 하는 일을 보고 답답해서 심정 탄다.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미련함으로 보이고, 미련함이 지혜로 보이기 때문이다.

5. 지혜의 길은 현실에는 못하지만 미래에는 낫다.

6. 지혜로운 자의 행함은 빛같이 빛나고, 미련한 자의 행함은 어둠같이 표가 난다.

7. 지혜로운 자는 해처럼 눈을 뜬 자요, 미련한 자는 음부같이 눈을 감은 자다.

8. 감당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지혜다.

9. 감당할 수 없다면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10.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11. 미련한 자는 미리 안 하고 때 지나서 행하여 헛수고를 한다.

12. 지혜로운 자는 갈 길을 가고, 미련한 자는 홀로 남아 절벽길을 지팡이만 의지하고 큰소리치며 걸어간다. 행악자와 악평자는 미련한 자다.

13. 지혜 없이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음부에 빠진다.

14. 미련한 남자는 남의 집에 사랑을 쏟고 빈 자루만 움켜쥐고 탄식한다.

15. 지혜로운 자는 생각으로 행하면서 기뻐하며 살고, 미련한 자는 힘들게 몸으로만 해 댈다.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계의 지혜는 행하여서 이루어지고, 영계의 지혜는 생각하여 이루어진다.

2. 행해야 얻는다. 그러나 행해도 얻지 못함은 미련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3.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행하니 어느새 미련함이 끼어들어 동행하는 것이었다.

4.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행하여 짐만 무겁고 먹을 것도 별로 없었던 것이었다.

5. 지혜가 가는데 미련함이 무식하게 무력으로 막는데, 지혜는 모르는 척하고 계속해서 지혜의 길을 가니 미련함이 딱 떨어져 나갔다.
6. 지혜가 미련함과 싸우면 다툼만 일으키고 필경은 미련함의 짝이 된다. 고로 지혜는 미련함과 싸우면 안 된다.
7. 지혜로운 남자가 미련한 여자와 짝이 되어 사는 것같이 불행한 일은 없다.
8. 미련한 자일수록 다투고 싸운다.
9. 동행하는 자가 미련하면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같이 사는 자가 미련하면 지혜자는 슬퍼서 운다.
10. 미련한 자는 옛것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새것을 좋아하여 같이 못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서 산다.
11. 지혜로운 자가 지름길을 닦아 놓음으로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다녀도 미련한 자는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하지 못하고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12.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미련하면, 지혜로운 남자는 그 여인을 만지면 터지는 폭발물로 보고 피해 간다. 미련한 남자는 무조건 그 여인을 좋아하여 만지다가 터져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13. 아름다운 여자라도 미련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의식하여 피한다.
14. 아름다움이 없고 겉모습이 멋없어도 지혜롭다고 소문나면 지혜를 배우려고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11년 7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2. 지혜는 가다가 말지 않는다.
3. 지혜는 먼저 보고 알고 떠난다.
4. 미련한 자는 거미 망을 걸어다가 바다 깊이 던져 놓고 큰 고기를 잡는다고 밤새우며 고기들이 얹히기를 기다린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희망차다. 그러나 희망은 없다.
5. 지혜자에게는 기회가 자주 온다.
6. 지혜자는 아까워도 버리고, 미련한 자는 아까워서 먹는다.
7. 미련하면 아름다움이 가려진다.
8. 미련하면 짐승 되고, 지혜로우면 사람 된다.
9. 작은 시간을 크게 생각하면서 쓰는 것이 지혜다.
10. 지혜는 수고하고 보람을 얻고 즐거워하나, 미련함은 거저 얻고 즐거워한다.
11. 수고하면서 행할 때 보람 있고 즐겁다. 수고하면서 얻었을 때 보람 있고 즐겁다. 지혜는 자신이 수고함으로 얻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이는 자기 공적을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12. 지혜자는 자기 욕이 행함으로 공적을 쌓아 자기 영혼이 얻게 한다.

13. 미련한 자는 걸 보고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속을 알고 좋아한다.

14.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미련한 자는 재물을 얻으나 결국 뺏기고 슬퍼한다.

<2011년 7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미련한 자는 싸우면서 질러가고, 지혜로운 자는 고생되어도 마음 편히 둘러서 간다.

2. 미련하면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하고 대적한다.

3.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행하고 후회한다.

4. 지혜자는 생각날 때 즉시 행한다.

5. 악인은 갖은 수단을 지혜로 삼아 무력으로 얻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악한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6. 지혜로운 자는 핏을 안다. 모사를 안다. 주고 나서 도로 뺏을 것을 안다. 거짓말을 안다.

7. 지혜자는 사람을 당장에 믿지 않는다.

8. 지혜자는 더 좋은 것을 찾을 때마다 더 좋은 것이 계속 있다는 것을 알고 한계선까지 더 좋은 것을 계속 찾아간다.

9. 자기만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자는 지혜는 있는데 크게 지혜롭지 못한 자다.

10. 지혜자는 자기 입장만 주장하지 않는다.

11. 지혜는 지난날을 보고 현재의 흐름을 알고, 현재를 통해 미래의 길을 안다.

12. 땅만 알고 땅만 보는 지혜자는 없다. 하늘 지혜로 땅의 지혜도 알게 된다.

13. 지혜는 시작과 끝이다.

14. 지혜자는 마음 문의 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아예 주께 맡겨 버렸다.

<2011년 7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첫 번째 이 잠언이 핵이다. 잠시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생각할 때 주신 잠언)

2.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간구하여 최고 좋은 침단의 것을 얻어라.

3. 보다 더 좋은 것이 그 차원별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다. 고로 얻어라.

4. 사람도 더 좋은 사람이 천층만층으로 있다. 더 좋은 사람이 많고도 많다.

5. 사람도 자기 차원대로 만나게 되고 찾게 되고 얻게 된다.

6.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예수님께 기도하여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아시니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것을 주신다.

7. 주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이 많으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얻어 만족하게 써라.

8. 더 좋은 것은 점진적으로 얻기도 하고, 자기가 준비된 대로 얻고 찾아 쓰게 된다.

9. 악인도 수고해서 얻는다. 그러나 악인은 불법을 행한 연고로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빼앗아 의를 위해 산 자에게 주신다.

<2011년 7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도, 환경도, 집도 더 좋게 만들면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이 된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더 좋은 것을 얻기도 하지만,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것을 얻기도 한다는 말이다.)

2. 자기 지혜대로 만들고, 자기 수고와 노력대로 더 좋은 것을 만들어 얻기도 한다.

3.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를 더 좋게 만들어라.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4. 자기 인생 주님이 쓰시기에 더 좋게, 더 가치 있게, 더 멋지게, 더 지혜롭게, 더 신령하게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라.

5.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주님은 아시고 주신다.

6. 더 좋은 잠언으로 계시하시는 주님의 말씀 - 기도하고 예비하고 영의 경지에 온전히 들어가야 주님은 더 신령하고 깊은 시대의 말씀을 주신다.

7. 미련한 자는 더 좋은 것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한다.

8. 사람이 아는 만큼밖에 못 얻는다.

9. 현재 신앙의 위치의 차원보다 더 좋고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주님도 거기에 해당되는 대로 더 역사하신다.

10. 육의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얻지 못한다.

<2011년 7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만 쓰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얻고자 하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은 생각이 들어 수고하고 실천하여 얻게 된다.

2.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대한 값을 줘야 되니 더 투자하고 더 간구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3. 영계의 것도 육계의 것도 모두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간구해야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4. 더 좋은 것을 얻었을 때 더 못한 것을 더욱 알게 된다.

5. 더 좋은 것을 얻었으나 전의 것보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면 그것은 완전하게 더 좋은 것이 못 된다.

6. 전의 것에 비해 장단점이 없이 이상적으로 더 좋아야 더 좋은 것이다.

7. 사람들은 새로 얻은 것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기는 한데 장단점이 있음을 계산하지 못하고 택하여, 그것을 얻고도 몰라서 문제에 부딪혀 고통을 받고 아쉬움을 갖게 된다.

9. 주께 온전히 구하여 온전한 것을 얻고 받아라.

10. 모가 난 것은 다 쓸 때까지 모가 나게 쓰게 된다.

<2011년 7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할 일을 남이 안 도와도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2. 자기가 책임지고 할 일인데 최선을 다해도 못 하는 일이라면 나머지는 자르고 버려도 괜찮다.

3. 일을 많이 해서만 자기 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방법을 달리하여 자기 할 일을 다 하려고 해라.

4. 1시간에 할 일은 누가 해도 1시간이 들어간다. 하지만 방법을 달리하면 40분이면 할 수 있다.

5.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란,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6. 가령 손으로 할 것을 발로 하든지, 기계로 하는 것이다.

7.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란, 편지에 답을 쓸 때 10줄 쓸 것을 5줄로 축소시켜서 쓰는 것이다. 방법을 달리하니 시간이 없어 못 하는 것을 다 하게 되었다. 축소시켜 하니 할 때마다 시간이 점점 저축된다.

8.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일을 그 시간에 할 수 있는지 궁구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가 있었다. 첫째, 빨리 하기. 둘째, 필요 없는 일 안 하기. 셋째, 일의 방법을 달리 하기. 넷째, 축소 시켜 하기 등이었다.

9. 시간과의 싸움이다. 일과 싸움하면 늘 시간에 쫓긴다. 일을 하면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 빨리 하고, 필요 없는 일 안 하고, 일의 방법을 달리 하고, 축소 시켜서 일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간이 남는다.

10. 시간을 축소시켜 써라. 이는 10분 말할 것을 5분만 말하고, 길게 쓸 편지를 짧게 축소시켜 쓰라는 말이다.

11. 인간은 한계 이상은 못 한다. 영계에 가서 육계의 일을 해야 시간을 초월하여 행하게 된다.

12. 정신 일도, 행동 일도 하고 날면서 하니 정한 시간을 초월한다.

13. 빨리 생각하고 빨리 하기다.

14. 시간을 많이 쓰는 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2011년 7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뺏어야 천국도 뺏는다.

2. 천국을 발견하고 구원도 발견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 자들이 세상 거리에 물밀듯 밀려다닌다.

3. 자기 시간을 다 쓰고 천국과 구원을 위해서는 10분의 1밖에 시간을 안 쓰니 천국과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4. 시간이 귀하여 화장실 가는 시간, 식사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모두 다 아껴 쓰니 참으로 얻는 것이 많다.
5. 잠자면서 혼적 상태에서 꿈으로 배우고, 영으로 영계에 가서 배우고 와서 시간을 쓰고 연구하면서 사니 시간을 더욱 아껴 쓴다. 나의 구원과 따르는 자의 구원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쓴다.
6.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겸용으로 쓰니 아깝지가 않다. 목욕하는 시간도 목욕만 하면 아까운 시간이다. 역시 겸용으로 쓰니 가치가 있다.
7. 내가 하루 종일 행하면서 시간을 안 주니 사탄이 기다렸다가 다리가 아프니 고꾸라지고 더러는 애간장 타니 개지랄을 하고 간다.
8. 나의 몸은 내 몸이 아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몸이다.
9. 매일 주께 배워야 시대 생명들에게 내놓을 것이 있다.
10. 잠자면 시간이 날아가고, 주의 일에 빠져 살면 시간이 멈춘다.
11. 매일 갈 길이 천 리다.
12. 0대 시간, 10대 시간은 느리게 가니 이때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잡게 해야 된다. 이들을 섭리사에 오게 하여 일찍부터 주님을 가르쳐 주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13. 20대는 인생이 커서 너무 바쁘고, 30대는 생활하고 돈을 벌어 먹고 살려니 더 바쁘다. 10대 때 주를 만나 뵈 자들은 인생 전체 시간을 계속 뛰니 쫓기지 않는다.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생 하루를 축소해서 시간을 써 보아라.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다. 잠자는 시간 빼고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살면 누구나 시간이 남아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일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끝낸다.
2.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을 하면 아무리 숨 가쁘게 살아도 할 일도 다 못 하면서 시간에 쫓긴다.
3. 필요 없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당시에는 모른다. 그러나 지난 후에는 ‘공연히 그 일을 했네.’ 한다. 사람은 그만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4. 꼭짓점만 하고 가면 많은 일을 한다.
5. 하루에 열 군데를 다 관광하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1시간 동안 돌아볼 것 30분씩만 돌아보면 다 보고도 하루 해가 남는다.
6.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보면서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누구나 시간에 쫓긴다.
7. 모자란 시간도 아끼면 오히려 시간이 남는다.
8. 물이 모자랄 때 물을 아껴 쓰면 오히려 물이 남는다.
9. 하루 24시간 동안 할 일을 다 하려니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하루 25시간, 26시간을 줄 수 없다. 시간을 아껴 쓰고 빨리 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10. 매일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연구해서 쓰면 시간에 안 쫓긴다.

11.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지 연구하여라.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얻는지 연구하여라.

12.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다 들어간다. 방법을 달리하여라.

13. 하루에 할 일이 10가지라고 치자. 이 일을 다 하는 방법이 있다. 첫째, 그중의 한두 가지는 안 해도 될 일이 있다. 안 해도 될 일을 골라내어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몇 시간이 유익이다. / 둘째, 빨리 하면 된다. 그럼 전체를 보았을 때 2시간 이상 유익이다. / 셋째, 각 일을 할 때 시간을 아껴서 하고 축소해서 일하면 된다. 가령 글을 10000자 쓰는 데 3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면 축소해서 7000자를 쓰면 2시간이면 된다. / 넷째, 일을 할 때 그 일에 빠져서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을 얻는다. / 다섯째, 일을 할 때 지름길을 찾아 하면 된다. / 여섯째, 영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시간의 표적이 일어난다.

14. 육적으로 하면 항상 시간에 쫓긴다. 영적으로 하면 항상 날아서 하기에 시간이 남는다. 가령 100리 길을 가서 확인하고 오려면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린다. 영적으로 확인하면 10분이면 확인한다. 고로 영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15. 주와 함께 하면 신같이 한다.

<2011년 7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전의 것이 무미하였은즉 후의 것을 세웠느니라. <해석> 앞의 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후에 제대로 된 것을 세웠다. 구약 아담도 제대로 못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로 후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2. 앞의 사람이 제대로 못 해서 제대로 하는 후자를 세웠다.

3. 어제 주님이 새벽 12시 30분에 깨워 주셨는데 피곤해서 못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났다. 씻고 준비하니 새벽 1시 15분이었다. 다음에는 주님이 깨우시는 시간에 꼭 일어나겠다고 다짐했다. 오늘은 주님이 새벽 12시 20분에 깨워 주시어 새벽 12시 45분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고로 오늘은 어제 아쉽게 못 한 것을 하게 됐다.

4. 주님을 제 시간에 만나는 것이 주님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을 제 시간에 만나는 것은 남녀가 서로 만나 사랑하는 시간과 같다.

6.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의 제도와 다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그것이 사랑한 것과 같다. 고로 제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과 주님과 만나라.

7. 세상 육체의 세계는 육체가 사랑해야 행한 것이 되지만, 영의 세계는 마음이 사랑하면 영체가 사랑한 것이다.

8. 영계는 마음 실상 세계다.

9. 영계는 생각하는 대로 집이 생기고, 만물이 보이고, 환경이 뒤바뀐다. 정신 세계도 생각한 것이 행한 것이다.

10. 새벽에나 낮에나 그 언제나 주님이 정한 시간에 제대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한 것과 같다.

11. 육의 세계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행한 것은 영의 세계에 가서 그 상황을 봐도 온전하지 못하게 보인다.

12. 육신이 육계에서 행한 대로 그 영이 영계에서 육신의 행위 그대로 반사되어 보인다.

13. 영은 거울 속의 자기 자신과 같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반사되어 보인다. 이와 같이 육계에서 자기 육이 행한 것이 영계에서 자기 영에게 그대로 반사되어 보인다.

14. 자기 마음이 생각하고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영계에서 그대로 보인다.

15. 육신이 온전하기 전에는 영계 실상이 온전하지 않다.

16. 육신과 마음이 온전해야 영도 온전하다.

<2011년 7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7.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시계는 시간에 온전하다. 그와 같이 주 안에서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

18.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온전할 수 있나?”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온전하지, 짐승이 온전하겠느냐.

19. 온전하게 행하려고 하면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

20. 전능자 하나님은 네가 행한 것을 보시고 네 운명을 좌로, 혹은 우로 좌우시키신다. 그래도 온전히 행하지 않겠느냐.

21. 여유 있게 행하여 주 앞에 제 시간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시간적인 온전함이다. 왜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며 “인간이 온전할 수 있나?” 하느냐.

22. 주께서 명한 것을 하는 것이 온전함이다. 왜 인간으로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느냐.

23.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온전함이다. 왜 그것을 못 한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가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온전함이다.

24.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그로 인하여 그때그때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행하여라.

25.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 사랑하듯이, 자기가 할 일을 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이끌어 사랑하듯 이끌어 행하여라.

26. 사람은 어떤 일을 두고 선악 간에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마음도 있다. 자기가 결심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두 마음이 팽팽하다. 하지만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다만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안 할 뿐이다. <삽화>

27.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고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참고 일을 안 저지를 수도 있는 두 마음이 있다. 화를 내고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능력으로 안 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자기가 참지 못하고 화도 내고 화를 행하기도 한다.

28. 네 앞에 죄가 있다. 다스려라. 그래야 네가 죄에 가담되지 않는다. 다스려야 죄를 안 짓게 되어 죄인이 안 된다.

29. 선과 악의 중간 위치에 사는 자는 죄를 지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다. 고로 어느 때는 참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고, 어느 때는 참고 죄를 안 짓기도 한다.

30. 죄의 주관권 중간 지점에서 아예 떠나 주 안에서 살면 죄의 주관권의 영향을 안 받는다.

31. 불의한 일을 보면 아예 접근도 못 하게 멀리 떨어져 거부하여라. 그러면 죄도 가까이하지 못한다.

3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망이 왕 노릇하지 못한다. 어둠은 빛을 가까이하지 못한다.

33. 생활 속에서 항상 죄를 뿌리 뽑아 없애면 마음이 잡초 없는 깨끗한 밭이 된다.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34. 가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온다.

35. 아벨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그만큼 없다.

36. 죄는 '성격' 때문에 짓게 되기도 하고, 안 짓게 되기도 한다.

37. 죄도 의도 성격에서 나온다.

38. 사랑 행위나 자위행위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다.

39. 자기 애인이 20분 있다가 온다고 하는데도 습관과 버릇이 들고 체질이 되면 자위행위를 한다.

40. 애인과 같이 식당에 밥 먹으려고 걸어가다가 그새를 못 참고 구멍가게에 들어가 빵 사먹고 나와서 배불러서 집에 간다. 습관과 버릇과 체질 때문이다. 애인은 울상을 하며 그냥 집으로 갔다.

41. 육계에서 가졌던 마음은 영계에서도 그대로 갖게 되고, 육계에서 하던 행위는 영계에서도 그대로 하게 된다.

42. 사람의 마음과 행위는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같다.

43. 자기가 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리기 전에는 계속 소유하고 있듯이,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44.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죄인지 모른다. 하나님과 주님만이 아신다.

45.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른다.

46. 자기가 행한 것이 죄인지 의인지 확인하여 죄는 회개하여 버리고, 의는 알고 행하여 의를 쌓고 살아라.

47. 죄를 짓지 않아야 더욱 죄에 대하여 알고 죄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

48. 육의 세계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잘 모르니 꿈이나 영계로 보여 확실히 깨닫게 해 준다.

49. 자기가 다니는 곳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다닐 때마다 걸리적거린다. 걸리는 것을 한 번 치워 없애 버리면 일평생 걸리적거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삶의 짐이 되어 자기를 각종으로 괴롭힌다. 회개하면 죄로 인한 해를 영원히 받지 않는다.

<2011년 7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50. 사람은 자기가 관심 없는 일은 일평생 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자연석 줍는 것에 관심 없는 자는 자연석 작품이 밭에 걸리고 눈에 보여도 모른다.)

51. 미련한 자는 어떤 것을 불법하게 쓰면서 “왜 창조주는 이것을 창조하셨나?” 한다.
52. 도끼를 쓰다가 잘못 써 자기 발 찍히고 “왜 이런 연장을 만들었지?” 한다.
53. 어떤 미련한 자는 불법하게 사랑하여 화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은 왜 여자를 창조하셨나?” “왜 남자를 창조하셨나?” 한다. 모든 만물도 자기 행위로 인하여 불법하게 써 놓고 “하나님은 왜 이것을 창조하셨나?” 한다.
54. 주 안에서만 사랑해도 사랑을 못다 한다.
55.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으되, 불법하게 보거나 행하면 불의가 되어 화가 되고, 선하게 쓰고 행하면 기쁨과 희락이 된다.
56. 우주의 별들 중에서 질서를 벗어나면 부딪쳐 깨지고 파괴되듯,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면 파괴되고 깨진다.
57. 창조주의 절대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순리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58. 창조주의 절대적 질서를 지켜 행해야 존재함이 지속된다.
59. ‘질서’는 영계와 육계에서 하나님의 순리의 법이다.
60. 사람은 질서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다. 하나님은 인간이 질서 안에서 만족할 만큼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61.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란 이와 같다. 자기에게 준 것도 못다 먹는데 남의 밥을 퍼먹는 격이다. 이것이 질서를 벗어난 마음이며 행위다.
62. 질서의 조종대는 마음에 두었다. 고로 마음을 다스리고 조종하여 질서를 지켜야 한다
63. 자기 몸이라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못 조종하면 부딪치고 다치고 고통을 당한다.
64.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능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넣어 사람을 창조하셨다. 고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허탄하고 불법한 데 쓰지 말고 다스려라.
65. 정한 장소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그 장소까지 오라고 1시간 10분을 주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가면서 탄 것을 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 정한 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생도 헛된 것에 한 눈 팔지 말고 탄 것을 행하지도 말고 정직하게 행하면 얻을 것을 얻는다. 그러나 이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
66. 모두 의로 수고하여 행하여 얻고 살아라.
67. 불법으로 행하여 얻고 살면 도리어 화가 된다.
68. 자기 행위대로 선악 간에 받는다. 불법을 행하면 화를 받고,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
69. 불법을 행하여 얻으면, 얻더라도 행한 만큼 값을 받는다.
70. 왕에게 행하여 받는 대우와 백성끼리 행하여 백성에게 받는 대우가 다르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성령님께 사랑과 선으로 행한 것의 대가는 인간에게 행한 것의 대가에 비교할 수 없이 크다.

71. 긴 말씀의 내용은 파노라마 잠언이다.

72. 어떤 것은 자신이 허락해야 얻어지고, 어떤 것은 주께서 허락해야 행함으로 얻어진다.

73. 주님의 것인데, 인간이 마음대로 행하여 얻을 수가 없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인간이 행함으로 얻게 된다.

<2011년 7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74. 노아 때 노아의 아들 '함'이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뜻이 깨지니 그 후손 중에 조건을 세운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어 뜻을 이루었다. 첫 번째 세운 자가 제대로 못 하여 뜻이 깨지니 두 번째 온전하게 행하는 자를 세워 뜻을 이룬다.

75. 사랑도 첫 번째 세운 자가 사랑의 뜻을 깨뜨리면, 주님은 그다음에 그 조건을 행할 자를 세워 그로 사랑의 뜻을 이루신다.

76. 장자가 못 하여 뜻이 깨지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차자를 다시 세워 그를 통해 본래 이루고자 했던 뜻을 정녕 이루신다.

77.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뜻은 예수님을 통해 신약에서 이루셨다. 이와 같이 신약에서 이루지 못한 뜻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어 땅에서 이룰 것은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땅에서 이루시고, 영으로 이룰 것은 주님이 영으로 이루신다.

78. 주님이 어제 못 이룬 뜻은 오늘 다시 기회를 주어 이루게 하시거나, 다음에 꼭 기회를 주어 이루게 하신다.

79. 인간이 절대적으로 온전히 행해야 주님은 그를 통해 이루실 뜻을 그와 함께하여 이루신다.

80. 온전하게 될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여 행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는다.

81.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글로 쓰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글을 쓰면 써진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도 그러하다. 온전하게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여 행해 버릇하여라.

82. 주님이 시키신 일을 제대로 완성한 것이 얼마나 보람인지 아느냐.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영원히 영향을 준다.

83. 집을 지을 때 작품으로 짓고 어떤 것을 할 때 작품이 되게 하듯이, 주님의 일을 마치 작품 만들듯 정성들여 흠 없이 하여라. 평생 영원히 보고 즐길 일이니 흠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84. 흠 없는 사랑, 흠 없는 사람이다. 흠 없이 주님을 대함이다.

85. 주 그리스도의 강림에 육도 마음도 영도 흠 없이 만들어 맞아야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고로 흠 없이 예비하고 만들어라.

86. 흠 없이 만든 것이나 흠 없이 행한 일은 늘 만족이다. 늘 기쁨이다.

87. 흠 없이 행하는 자는 사랑도 흠 없이 받는다.

88. 흠 없이 예쁜 여자를 쳐다보면 기쁨을 느낀다.

89. 흠 없이 아름다운 자라도 그 마음에 흠이 있으면 흠 있게 보인다.

90. 흠 없이 자기를 만들어 흠 없이 대우 받고, 흠 없이 사랑도 받자!

<2011년 7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91. 흠 있는 곳을 뜯어내고 더 좋게 만들면 더 빛이 난다.

92. 흠 있으면 흠 잡는다.

93.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져 있으면 찌그러진 곳에는 물을 부어도 더 안 들어간다. 사랑하는 자도 흠이 있으면 그 흠 때문에 온전히 다 사랑해지지 않는다.

94. 흠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각종 은혜와 축복이 더 안 들어가고 문제가 생긴다.

95. 틈과 구멍이 있으면 겨울철에 틈과 구멍을 통해 추운 바람이 들어와 춥게 만든다. 이와 같이 흠이 있으면 그 흠 때문에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몸과 마음의 흠을 고치면 전체가 흠 없이 아름답게 보인다.

96. 아름다운 여인도 흠이 있으면 그 흠 때문에 아름다운 것까지 가린다.

97. 사람은 자기 흠을 가린다.

98. 거짓말도 흠이고, 선하지 못한 악한 마음도 흠이고, 약점들도 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흠을 숨기고 흠을 통해 즐기고 좋아한다.

99. 하나님은 흠을 죄로 보시고, 어서 고치고 회개하라고 하신다.

100. 사람은 자기 흠을 안다.

101. 사람들이 자기 흠을 알까봐 숨겨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회개하여 마음이 기쁜 것이 더 낫다.

102. 흠을 가리니 흠이 더 커지고 사람들이 더 알게 된다.

103. 흠도 가릴 때는 잘 가려지는데, 가릴 때가 지나가면 흠이 돋보이게 나타난다.

104. 겨울철에는 모두 긴 옷을 입으니 몸에 흠이 있어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름에도 긴 옷을 입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 장판지에 다친 흉터가 많아서 가린다고 했다. 인생들의 흠도 이와 같이 흠을 가릴 때가 지나고 때가 되면 밝혀져 더욱 표가 난다.

105. 자기 남편을 사랑하다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 여자는 마음의 흠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드러나 알게 된다.

107. 사탄은 인간의 흠을 드러내며 다닌다. 고로 모두 알게 된다. 그러나 사탄이 자기의 뜻을 이루려면 그 사람의 흠을 숨겨 그를 자기 욕으로 삼고 흠을 내는데 쓴다.

108. 눈으로 안 보이는 흠이라도 냄새를 맡고 알게 된다. 이와 같다. 행위의 흠은 마음으로 느끼고 썩는 냄새를 맡고 알게 된다.

109. 영에 속한 자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행위를 마음 화면에 비추어 그 행위를 안다. 환상으로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 행한 것이 떠오르면서 영상화 되어 보인다.

<2011년 8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욕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2. 욕신은 아무리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날마다 늙고 낡아지는 옷같이 되니 허무하다.
3. 욕신만을 위해 투자하면 늙고 낡아져 결국 없어지니 허무하다.
4. 모든 금은 보물을 다 욕신에게 투자하고 욕신을 위해 살아도 세월이 가면 욕신은 늙고 병들고 변해 버리니 허무하다. 욕에 속한 것은 희망도 사랑도 결국 사라져 버린다.
5. 욕신이 삶의 초점을 '영의 구원'으로 맞춰 놓고 영을 위해 욕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영원히 존재하도록 '영'을 구원해 놓고 산다면, 세월이 가서 욕신이 늙고 변해도 욕이 행한 것을 영이 다 가지고 있으니 허무하지 않다. 영이 구원 받았으니 욕이 영을 위해 투자한 모든 것을 영이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사니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영을 위해 살아라. 영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영원히 허무하지 않다.
6. 욕신은 아무리 사랑하고 가꾸고 잘해 줘도 늙고 병들어 가는 그 모습이 마치 봄날에 녹아내리는 눈사람 같다.
7. 욕신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 늙고 변해서 몰라본다.
8.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만든 눈사람도 봄날이 되면 점점 녹아내려서 점점 흉하게 사라진다.
9. 욕신을 중심해서 사는 자는 참으로 허무한 정해진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10. 욕신은 욕신의 일을, 영은 영의 일을 하루 종일 일평생 생각한다.

<2011년 8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1.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오전 인생과 같다. 고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욕신'을 위해 온갖 것을 투자하며 산다. 그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는 오후 인생부터는 아무리 욕신을 위해 투자하고 사랑하며 살아도 변화무쌍 하니 그제야 하나하나 모든 것을 포기한다.
12. 아침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과 같은 어렸을 때부터, 청춘 때부터 자기 영을 위해 자기 욕신을 투자하며 살아라. 그래야 욕신의 생각과 마음과 혼도 영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보람 있다.
13. 인생 일평생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욕신의 마음의 운명이 결정되고 영의 몸의 운명이 결정된다.
14. 영을 구원해 놓고 살지 않는 자는 사망 죽음 길을 가는 자다.
15. 사람이 욕만을 위해 살든지, 영을 위해 살든지, 세상을 위해 살든지, 주님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삶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고 살든지, 믿고 살지 않음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고 살든지 않고 살든지 욕신은 인생 100년 가까이 살다가 죽는다.
16. '영'은 세상에서 자기 욕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영원히 멸망 받는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가느냐가 좌우된다.
17. 욕신과 영은 질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
18. 욕신은 오전에 볼 때 다르고, 오후에 볼 때 다르다. 그만큼 변해 가고 늙어 가는 것이 눈으로 표가 나고 마음으로 표가 난다.

19. 육신이 늙기 전에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육신이 자기 영을 위해 살면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 혼이 영으로 흡수되어 영의 마음과 일체 되어 영과 함께 변화된다. 그러면 육신의 몸은 늙고 병들어 버리더라도 영의 몸은 육신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영체의 몸으로서 자기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아무 것도 걱정할 것 없다.

20. 자기가 메모해 놓은 것과 글을 써 놓은 것은 시간이 갈수록 잉크가 날아가 사라져도 인쇄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괜찮다. 이와 같이 육신이 영을 위해 산 자들은 세월이 지나 육신이 사라져도 육신이 행한 행위와 그 마음과 정신과 혼이 다 영에게 흡수되어 육의 행위로 영이 변화되었으니 괜찮다. 책으로 인쇄해 놓지 않은 글과 원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듯이, 자기 영혼을 만들어 놓지 못한 인생은 무로 사라지고 흑암으로 사라진다.

21.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글로 써 놓으면 남지만, 그냥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이와 같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육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사라지기 전에 종이에 기록하듯이, 육신의 것이 영으로 옮겨지도록 영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 영원히 살게 된다.

<2011년 8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22. 하찮은 다람쥐도 가을철에 알밤과 도토리들 주워 먹다가 생각한다. 때가 되면 이 알밤과 도토리들이 가을비에 다 썩어 버리고 겨울철 눈보라에 다 얼어 없어진다 생각하고, 먹기만 하지 않고 힘껏 물어다가 땅굴을 깊이 파고 엄청난 양의 알밤과 도토리들을 저장한다. 인간은 육신만 위해서 살지, 영혼을 위해 살 줄 모른다.

23.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늙고 병들어 마치 육이 땅에 묻히듯 사망과 흑암에 묻히고 만다.

24.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혀 영원히 없어지지만, 영은 사망에 묻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 각종 괴로운 고통을 받는 죽은 영이 되어 산다.

25. 이 세상 인생 일생 삶은 자기 영을 영원히 존재시키기 위한 시간이다.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 육과 함께 자기 영을 영원히 구원하는 장소다.

26. 이 세상을 살 때 영을 구원해 놓고 영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느냐. 그 가치는 매일 땅 속에서 금을 수십 관씩 파내는 것보다 더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

27. 사람이 모르니 자기 영혼을 영원한 고통의 길을 가게 하면서, 자기 육신은 잠시 눈 깜빡 하는 순간을 위해 웃고 즐기면서 산다.

28. 자기 육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영혼과, 믿어도 형식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영혼은 모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흑암에 속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모두 안 가 봐서 모르니, 갔다 온 자가 해주는 말을 듣고 믿어라.

29.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고 진정으로 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자의 영만이 사망 세계 지옥 대기소에서 나오게 된다.

30. 지옥 대기소에서 나온 영이라도 그 육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정 믿으면서 자기를 위해,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해야 그 공력에 따라 행한 대로 그 영이 천국, 혹은 낙원, 혹은 선영계로 가게 된다.

31. 영의 구원에 대해, 영원한 기쁨의 세계 천국에 대해, 영원한 형벌의 세계 지옥에 대해 알고 사는 자는 매일 자기 영을 위해 살고, 매일 주님의 뜻을 위해 산다.

32. 모르는 자는 인생 100년도 허무하게 가치 없게 살고, 아는 자는 하루라도 귀히 산다.

<2011년 8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 33. 금 같은 좋은 땅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 쌓아 놓으면 천한 쓰레기장이 된다. 인생도 그러하다.
- 34. 금 같은 마음도 죄를 지어 쌓아 두면 죄의 쓰레기장이 되어 천한 마음, 천한 사람 취급받는다.
- 35. 좋은 사람을 악평하고 각종 누명을 씌우면 사람들이 그를 쓰레기장 취급한다. 모두 쓰레기 같은 말과 누명을 소각 시키고 없애고 난 후, 그곳에 높은 빌딩을 짓고 좋은 공원을 만들면 그곳에 쓰레기를 못 버린다.
- 36. 마음이 쓰레기 같은 악인들이 자기 쓰레기를 가져다 의인들 집에 버리고 의인들 마음에 버려 쓰레기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때가 되어 심판하사 그 영에게 그 쓰레기 다 먹게 하시고, 자기 죄를 회개할 때까지 그 육신이 쓰레기 속에서 살게 하시고 정한 대로 형벌을 주신다.
- 37. 영계에 가면 영들이 각자 자기 육신이 행위대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살고 있다.

<2011년 8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 1. 육신이 육으로 치우치면 육으로 쓰여지고, 육신이 영으로 치우치면 영으로 쓰여진다.
- 2. 육신이 육에 속하면 육으로 쓰여지고, 영에 속하면 영으로 쓰여진다.
- 3. 육신은 영에 속한 기구도 되고, 육에 속한 기구도 된다. 쓰는 자 마음이다.
- 4. ‘육신’은 마치 차와 같다. ‘마음’은 차의 엔진과 같다. 엔진에 따라 차의 성능이 좌우되듯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육이 어떻게 사느냐가 좌우된다.
- 5. 육신이 주님의 생각으로 쓰여질 때 주님의 육신이 된다. 육신이 자기 생각으로 쓰여지면 자기 육신이 된다.
- 6. 꿈에 자기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자기 육신이 혼적 상태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다. 자기 육신의 삶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 7. 자기 육신이 영에 속한 일을 할 때 영에 속한 육신이 되고, 육에 속한 일을 할 때 육에 속한 육신이 되는 것이다.
- 8. 육신은 기구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늘에 속한 육이 되느냐, 세상에 속한 육이 되느냐가 좌우된다.
- 9.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속한 주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그 뜻대로 행하면서 육신을 쓰면 하늘에 속한 육이 되는 것이다.
- 10. 육은 생리적 물질 존재로서 물과 같이 가만히 두면 그냥 흘러간다. 세상에 속한 육의 몸은 가만히 두면 만물 세상에 속한 대로 유유히 흘러간다.
- 11. 마음도 가만히 두면 육신의 평안과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 것에 기쁨을 두고 자기 육 따라 유유히 세상으로 흘러가게 된다.
- 12. 주님의 말씀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면 즉시 하늘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 되어 육신도 주님의 생각으로 쓰게 되니 하늘에 속한 육신이 되어 주님께 쓰여진다.
- 13. 육과 마음과 정신은 자기가 쓰는 대로 변화되고, 이에 따라 영도 그 형체가 변화를 일으킨다.

14.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같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15. 자기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강해진다.
16. 마음이 건강하고 강해야 자기 육신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든다.
17. 인간의 자체 건강이 있고, 하늘에 속한 건강이 있다.
18. 인간의 눈과 귀와 육성으로는 육적인 것만 느끼게 된다. 인간은 속을 못 보고 겉만 보기 때문이다.

<2011년 8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 2011년 7월 29일 금요일 생방송 천국성령운동 때 전해 준 잠언입니다. 이 잠언은 성경처럼 한 구절, 한 구절로 되어 있으나 마치 시와 같이 하나로 연결된 잠언입니다. 한 번 더 읽어 주시고, 모두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늘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시대 하늘 양식 흥년 들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간다.
2. 새 시대, 새 역사, 새 섭리, 새 양식 진수성찬 총만하다. 시대에 맞는 양식이며, 시대에 맞는 빛나고 찬란한 새 옷이다.
3. 젊은이들 한창 먹을 때건만 굶주리는 옛 기성, 구시대 안타깝다. 양식 없어 걱정이 아니다. 마실 물이 없어 걱정이 아니다. 입을 옷이 없어 걱정이 아니다. 집이 없어 걱정이 아니다. 하늘 이 시대 새 역사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다.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 시대의 옷을 입지 못하여 헐벗었다. 주님의 시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자기 신령한 영혼의 집을 짓지 못한 고통이다.
4.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섭리역사는 모든 것이 새 것이다. 시대 말씀도 새 말씀이다. 시대 사람도 새 사람들이다. 새로운 신앙의 영의 옷을 입었다. 주님의 새로운 제도다.
5. 새 노래 들려오고 주 하나님께 새롭게 영광 돌린다.
6. 시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못 찾는 자들은 주를 좇으나 곤고하다.
7. 시대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새 역사에서 주와 동행이다.
8. 시대 소경들, 주님의 시대 생명길 못 보고 헤맨다.
9. 악평자, 불만자, 하늘을 모시지 못하고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들! 시대 길을 구름같이 가도 구경만 하며 눈이 멀고 마음이 멀고 마음이 강박하여 깨닫지 못하는구나.
10. 새 역사 하늘 역사는 쳐다봐서는 알 수가 없다. 따라와야 가다 보면 알게 된다.
11. 하늘 역사는 시대마다 새 역사를 펼 때마다 그러했다.
12. 알고 가는 자가 행복하고 시대 천운을 탄 자다.
13.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제 가는 길에 만족하며 모른 채 가고 있다.

14. 시대 보낸 자는 안타까워하며 교만한 자, 무지한 자, 시대 소경을 쳐다본다.
15. 악평으로 미움으로 눈이 멀어 마음눈이 야수 눈이 되었도다.
16.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장아장 따라와서 성장하여 어른 되고 하나님의 시대 일꾼 되어 주님의 육신 되어 살아간다.
17. 시간 가면 알아보고, 까마득히 성약 산을 저 멀리서 쳐다보며 그제야 감탄한다.
18. 남 말 듣고 마음눈이 멀어 버리고, 육신 눈이 봉사 되고, 인식관이 시체 관이 된 연고로다.
19. 주님 따라가는 시대 중심자와 그 따르는 자들을 죄인처럼 보고 자신들의 썩은 마음, 악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았으니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거하는 몸이 되었도다.
20. 주님께서 보시고서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니 어쩔 수가 없다 하시도다.
21. 그렇게도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건만 지키지 않고 신앙인의 재판관이 되어 심판하였으니 외람되다. 참람하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모질게 대하였으니 그 영혼과 그 육신이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영혼은 자기 육신과 정신과 마음 따라가서 살 것이니 그때 가면 알 것이다.
22. 주님 따르는 그 생명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여 일평생 동안 영적 살인을 하고 살았으니, 그 죄를 씻으려면 수십 년 동안 회개해야 되건만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어둠의 길로 가는구나.
23. 눈이 멀고, 그 마음에 자갈과 엉겅퀴가 절어서 시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도다.
24. 어둠 속에 사는 자들, 자기 자신이 사는 세상은 보이지 않고 새 시대 빛의 세계에 사는 섭리의 사람들이 잘 보이니, 자기들의 검은 마음과 검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갇은 악평과 비판들을 하였도다.
25. 전능하신 하나님이 펴신 섭리역사 중심 역사, 날이 가면 민족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에 이루어진다. 몇백 년이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예수님도 온 세상을 움켜쥐고 1000년 성약역사 뜻을 두고 거침없이 달리신다.
26.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 섭리인들, 당세에 담대히 외쳐 놓고 굳세게 잡아 놓고 가야만이 후손들이 쉽게 역사를 펴게 된다.
27. 악평자들, 불신자들 주님 뜻을 버리고서 뛰쳐나가 여기저기 뜻을 펴며 부끄러운 짓을 해 대킨다. 하나님이 회리바람 불게 하여 날아가게 해 버리시고 양심 심판, 물 심판을 하시어 노아 시대 그 짝이 되고 말았도다.
28. 섭리 새 시대 새 말씀의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물바다의 돼지들이 되고 만다.
29. 행악자들이 개들처럼 짓어 대고 환난 풍파 불어와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길러 택하신 자들이 흰 구름 되어 몰려온다.
30. 자기를 주라고 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듯이 그들이 쌓은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사 시대의 거울이 되게 하시도다.
31. 하늘의 시대 사명자가 저들이 하는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시대 심판을 고했더니 많은 불법자들이 사라지고 이제 몇 곳만 남아 정한 때를 기다린다.

1. 주인의 말대로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사명도 달라지고 할 일도 좌우되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할 일도 달라지고 사명도 좌우된다. 시대도 교파도 그러하다.
2. 많은 사람을 두고 각각 말하는 내용에 따라 말하는 사람의 친구로, 혹은 형제로, 혹은 애인으로 좌우된다. 이와 같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주님의 어떠한 대상이 되는지 좌우된다.
3. 남자의 X, Y 성 염색체로 태 안에서 남녀의 성별이 결정되어 버리듯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내용에 따라 듣는 자의 사명도 좌우되고, 구원의 위치도 좌우되고, 영과 육의 변화도 좌우되고, 영의 형체도 좌우된다.
4. ‘가라’, ‘오라’, ‘하라’, ‘하지 말아라’ 주인이 말하는 내용에 따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할 일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위치가 좌우되고, 변화하는 것도 좌우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이 되느냐도 좌우된다.
5. 사람이 어떤 존재물을 만들기에 따라 그 형체가 좌우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 그 행함도 좌우되고, 그 육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영의 형체도 좌우된다.
6. 집을 짓지 않고서는 집이 될 수 없듯이, 정원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원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딸로 만들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때에 주님께서 인간을 그 사랑하는 애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다.
7. 무(無)에서 애인으로 만들어 애인이 되고, 신부로 만들어 신부가 된다.
8. 하나님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어 천지 만물들을 이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9. 존재물은 그냥 있으면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야 만들어진다.
10. 무(無)에서 유(有)다. 목적인 바를 만들어야 목적인 것이 만들어져 존재하게 된다.
11.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으로 그 원하시는 자들을 만드신다. 선지자를 통해, 중심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함으로 자녀로, 형제로, 혹은 사랑하는 신부로 변화시키며 만드신다.
12.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말씀’을 주시어 듣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면서 원하는 대로 만드신다. 어떤 자는 자녀로, 어떤 자는 신부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사역자로 만드신다.
13.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을 하면서 만든다. 또 행하면서 만든다.
14. 보물을 얻기 전에 먼저 먹어야 한다. 먹고 살아야 보물도 필요하게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신랑의 보물보다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이다. (고로 무엇을 얻으려 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2011년 8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감동되었을 때 생각과 실천이다.
16. 마음과 몸이 흥분됐을 때 생각과 실천이다.
17. 주님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마음이 흥분됐을 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평소에는 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이다.

18. 마음이 동하고 흥분됐을 때의 그때 생각, 그때 실천은 산을 넘게 하고 바다를 건너게 한다.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낳는다.

19. 사람도 짐승도 사랑에 흥분됐을 때, 그 생각이 하늘로 솟아 강을 건너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넘어간다.

20. 감동됐을 때 육계를 벗어나 영계의 문을 열고 주님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21. 흥분은 하되 울분은 하지 말아라.

<2011년 8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22. 집을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나무 등이 자료다. 집을 짓다가 자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집을 지을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을 하늘나라의 형체로 만드는 자료다. 주님이 말씀을 주시어 인간의 육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행실을 통해 그 영을 하늘나라의 형체로 만들게 된다. 고로 말씀이 중지되면 영을 더 만들지 못하고 거기서 중지된다.

23. 자기 생각과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육신의 행위를 따라 풀이나 나무나 흙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고로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 스쳐 가면 집을 지었어도 금방 무너져 수고한 공력이 사라진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육신이 행함으로 영의 집을 짓게 되면, 철이나 금이나 돌로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 스쳐도 그 공력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 빛을 발하게 된다.

24. 사탄은 거짓된 말씀을 주어 사탄에게 속한 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사탄의 말인지 알고 듣지 않으니 교묘하게 꾀어서 넘어가게 한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탄에게 주지 않고 사탄을 꾸짖고 사역자를 통해 소멸하고 구원하신다.

25. 자기 말로 자기를 만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자기를 만들어라.

26. 주께 속한 자는 주께 속한 자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27. 화가가 사람이나 각종 물체를 보고 그대로 그리듯이, 사람이 신령한 마음의 차원에 올라 주님의 대상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받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진다.

28. 카메라가 사진을 찍듯이, 비디오가 형상을 연속 촬영하듯이, 주님의 말씀의 그 형상을 그대로 찍어 자기 마음에 전달하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형체가 변화되어 육도 영도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

29.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행해야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된다.

30.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말면, 마치 태 안에서 아이의 지체가 형성되다가 만 것과 같이 자기 영이 불구자가 되어 성장한다.

31. 불구자는 수술하고 고쳐야 되듯이,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 행위를 고쳐야 정상이 된다.

<2011년 8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32. 살려야 또 써 먹지 않느냐. * 기도 중에 본 환상 : 황소가 매여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자꾸 자기를 매 놓은 기둥을 떠받고 있었다. 그래서 긴 쇠꼬챙이로 찌르니 펍 쓰러졌다. 그 모습이 불쌍하여 다시 기도하여 살렸다. → 이 꿈이 무슨 꿈이냐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까 낮에 네게 교리로 대면하던 기성 교인을 말한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그놈의 황소. 괜히 기도해서 살렸네.’ 했다.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려야 네가 원하는 대로 또 써 먹지.” 하셨다.

33. 주님은 말씀하셨다. “발을 개발하고 만들어 써라. 발을 개발해도 손으로 쓰지 말아라. 손을 쓰려면 손을 더욱 개발하고 만들어 손을 더 이상적으로 가치 있게 써라.”

34. “사람은 지체처럼 타고났으니 자세히 보고 타고난 대로 써라.” 하셨다.

35. “사람의 지체도 타고난 대로 더욱 개발하여 각 지체를 온몸을 위해 써야 하듯, 각자의 인생은 지체같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타고났으니 타고난 것을 잘 찾아서 영으로, 육으로 개발하여 써야 된다.” 하셨다.

36. <귀한 잠언> 사람을 쓸 줄 모르면 자기가 못 크다. 사람은 자기가 쓰는 배경이요, 밑거름이다. → 사람을 쓸 때 깊이 기도하고 써야 된다. 각각 필요하여 주님이 필요한 곳에 배치시키셨다.

37. 자기가 쓸 자를 못 찾아 쓰면 자기가 못 크다.

38. 쓰는 자가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한 자가 와도 못 쓴다. 차원 높은 자를 쓸수록 자신이 차원을 높이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된다.

39. 자기에게 속한 자는 끝까지 만들어서 써야 된다.

40. 만드는 대로 크게 된다.

41. 만들어 쓰는 대로 거목이 되어 태풍을 막아 주고, 가뭄도 막아 주고, 눈보라도 막아 주고, 비바람도 막아 준다.

42. 주님은 앞날을 보시고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돕게 하셨다. 사람을 귀히 보고 기를 줄 알아야 된다. 작은 나무도 기르면 거목이 된다.

43. 쓰는 만큼 거름하고 길러야 된다.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다스리고 주관하면 시간과 싸울 것도 없다.

2. 절대 주님의 말씀 주관권에 있는 자는 사탄과도 싸움이 없고, 자기와도 싸움이 없다.

3. 아예 사탄 주관권과 인사탄 주관권에 있지 않고, 주님 주관권 안에서 주님과 일체 되어 동행하면 절대적으로 빛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과 상관이 없게 되고 다룰 자도 없게 된다.

4. 천국을 옮길 수는 없다. 고로 천국은 찾아가야 된다. 이와 같이 주님의 주관권도 옮기지 못하니 우리가 사망권에서 나와 주님의 생명의 주관권을 찾아가야 된다.

5. 생각은 그릇이다. 주님을 향한 ‘생각’이라는 그릇이 깨지면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고, 주님은 말씀을 주실 수가 없다.

6. 처음에는 생각이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흐릿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잡생각과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그것을 없애야 생각 주관권에 들어가서 생각이 확실하게 떠오른다.

7. 주님을 생각하여라. 생각이라는 그릇에 주님을 담아라. 그러나 처음에는 육의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직접

보고 생각하듯이 또렷하고 확실하게 생각나지 않는다. 잡생각과 다른 생각을 없애고 주님을 생각하면 확실하게 주님이 생각난다.

<2011년 8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힘들지 않고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길은 자기중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길이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영은 잘해야 최고 하위급 선영계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영들은 모두 사망권 영의 세계에 가게 된다.
2.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세계에서 최고 힘든 차원이다. 이런 자들의 영은 최고 상위급 천국급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못한 영들은 낙원급 구원에 이르게 된다.
3. 주님 마음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사도 바울같이, 사도들같이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들이다.
4. 잠깐 편하려고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5. ‘신앙’은 신앙의 주인 되시는 전능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며 그의 마음과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6. 자기 생각을 100% 다 버리고 주님 생각을 배우고 받아서 살아야 인간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 주님의 육으로서 귀히 쓰이게 된다.

<2011년 8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한다.
2. 마음이 약하여 환경 따라 변한다.
3. 마음의 힘이다. 능력이다. 육신의 연단이다. 능력이다.
4. 변치 말아라. 그래야 존재한다.
5. 선이 악으로 변질되면 다시 선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
6. 악이 선으로 변화되면 악으로 잘 변질되지 않는다.
7.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주님과 일체 되면 변함이 없다.
8. 관리해야 변하지 않는다.
9. 관리하는 것에 따라 좋게도 변하고 나쁘게도 변한다.
10. 마음 관리, 몸 관리다.
11. 목적에 따라 변한다.
12. 하늘에 속한 형체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변하지 않는다.
13. 매일 변화시켜라. 산을 파내서 평지를 만들듯, 깊은 계곡의 함정을 채워 평지를 만들듯 자기를 깎아 내고 채워서

만드는 것이다.

14. 주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이다.

<2011년 8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마음 변화되면 욕이 변화된다. 욕의 변화는 곧 행실의 변화다.

16. 마음도 몸도 가만히 있으면 종일 안 변한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안 변한다.

17. 변화는 목적을 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실천해야 일어난다.

18. 사람이고 환경이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날로 변화될 때 얼마나 좋으냐.

19. 좋아지기 위해, 편해지기 위해, 보람과 기쁨을 얻기 위해 수고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20. 어제보다 오늘은 더 수고와 변화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수고와 변화다.

21. 주님의 재림 때는 변화의 시대다.

22. 예수님은 신랑으로 변화되어 오시니, 우리는 신부로 변화되어야 주님을 맞고 주님과 하나 된다.

23. 변화되지 않으면 하찮은 미생물이다. 곤충이다.

24.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닮은 신이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25. 변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

26. 인간은 '자기 생각'에 따라 나쁘게 변화되기도 하고 좋게 변화되기도 한다. 생각에 따라 행하니 변화무쌍하다.

27. 좋게 된 것은 변화이며, 나쁘게 된 것은 변질이다.

28. 나쁘게 변질되어 버리면 희망도 없어지고 점점 절망으로 가게 된다.

29. 좋게 변화된 자는 점점 더 이상세계로 가고 기쁨과 신비한 세계로 가게 된다.

30. 주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땅에서 끝나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 끝난다.

31. 주님과 함께하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 절망이 희망으로 변한다.

32.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같이 변화되고, 주님의 형체와 같이 홀연히 변화된다.

33. 주의 것으로 선한 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사탄의 것이 된다. 선으로 변화되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2011년 8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34. 지금은 변화의 시대다.

35. 때 지나면 몸부림을 쳐도 변화되지 않는다.

36. 변화는 '자기 수고'로 되고, '때'로 되는 것이다.
37.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때 행하는 자는 변화되게 하셨다.
38. 변화된 자는 의의 날개로 하늘을 날고 신이 되어 산다.
39. 땅을 보고 살면 땅에 속한 육체로 변하고, 하늘을 보고 살면 하늘에 속한 영체로 변화된다.
40. '말씀' 따라 변화된다. '생각과 행위'에 따라 변화된다.
41. 악은 악으로 변하게 만들고, 선은 선으로 변하게 만든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라.
42.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악으로 변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육도 영도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어 천인이 된다.
43. 인간이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면 사람으로서 짐승으로 끝난다.
44. 만물도 태어난 대로 그대로 놔두면 그 존재물로 끝난다. 사람이 손대서 만들어야 새로운 형체가 된다.
4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각과 주님 생각대로 행하면서 살면 위대하게 변한다. 상상도 못 하게 변한다.
46. 변하는 대로 그 결과 세계에 간다.

<2011년 8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47. 지금은 변화받는 때다.
48. 먹는 음식도, 사람이 자고 사는 집도, 인간이 쓰는 모든 물건도 만들어서 변화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라.
49. 변화시키지 않고 쓰거나 먹으면 고통이다. 슬픔이다. 힘들고 안타까운 삶이다.
50. 만들면 변화된다. 고쳐야 변화된다.
51. 각자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지 못한 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52. 자기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놓고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쓰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개인, 민족, 세계로 합당하게 쓰신다.
53. 구시대에 있으면 변화되어도 구시대 형체로 변화된다.
54. 누구든지 새로운 그 시대 하늘 섭리에 오지 않으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
55. 새 시대에 와야 새 시대 말씀의 기계로 새 시대 하늘의 형체를 찍어 낸다. 구시대 기계는 구시대 것만 찍어 낸다.
56. '말씀'은 사람을 만들어 내는 기계다.
57. '말씀'은 종을 찍어 내고, 자녀를 찍어 내고, 신부를 찍어 내는 생명의 기계다.

58. 변화되지 않으면 항상 그 위치에서 쓰여진다.
59. 하나님은 더 좋은 구원을 위해 그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오셨다.
60. 더 좋게 변화되는 대로 더 좋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61. 변화되지 않으면 무가치다. 변화될수록 하늘의 가치다.
62. 변화시킨 후에 쓰는 것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63. 변화와 쓰임과 가치다.
64. 네게 준 사명에서 무엇을 더 변화시켜야 되는지, 기도하고 깨닫고 행하여라.
65.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자기를 만들어 변화시키는 일이다. 둘째, 따르는 자를 만들어 변화시키는 일이다.
66. '희망'이 없이는 자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67. 큰 자는 큰일에 손을 대어 만들고 변화시켜야 된다.
68. 댐을 만들고, 빌딩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69. 신앙이 죽은 자는 죽음으로 변하고, 신앙이 산 자는 생명권으로 변한다.
70. 변화되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71. 변화된 자는 생명권의 사람이고, 변화되지 못한 자는 사망권의 사람이다.
72. 깨끗하게 청결하게 변화하여라.
73. 변화된 만큼 그 위치에 가게 된다.
74. 자기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변화하여라.
75. 자기 스스로 할 책임을 해야 변화된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변화되는 것이 있다.
76.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야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 육적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과 혼적 변화가 일어나야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
77. 인간 스스로는 정신적 변화와 육적 변화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78. 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변화되어 구원을 이룬다.
79. 난자는 스스로 인간 생명체로 변하지 못한다. 정자와 일체 되어야 인간 생명체로 변한다. 이와 같이 하늘의 생명체인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우리 영과 육이 하늘 형체로 변화된다. 주님은 하늘의 형체를 이루는 정자요, 우리는 난자다.

80.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81. 변화되고도 변화된 대로 쓰이지 않으면 변화만 됐지, 아무 유익이 없다.

82. 변화되고도 변동 없이 살면 변화된 새것을 가지고 옛것에 속해 살게 된다.

<2011년 8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83. 변화되지 않으면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도 그 위치에서 살고 천국을 얻지 못한다.

84. 변화되지 못했는데 천국에 가는 자는 없다.

85. 시대도 변화, 환경도 변화, 자기 삶도 변화, 자기 생각과 행실도 모두 주 뜻대로 변화다.

86.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변화가 일어난다.

87.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스스로 행동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88. 변화가 없으면 반복되는 삶에 지겨운 삶이다.

89. 천국을 향해 수없는 변화를 해야 된다.

90.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하고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변화해야 된다.

91. 차원을 높이고 못 한 것을 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

92. 완전하게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다.

93. 자기 영이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상대가 되는 신이 되게 변화되어야 한다.

94. 신이 되게 변화되면 주님과 통한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정기적으로 마음에 들려오고 주님과 점점 대화하게 된다.

95. 고양이는 변화되어도 호랑이가 못 되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까지 변화되게 창조해 놓았기에 하나님의 상대가 되기까지 변화될 수 있다. (아멘!)

96. 육신은 변화되어도 100년 살고 끝나지만, 그 영은 자기 육신의 변화된 행위를 흡수하여 영원히 가지고 산다.

97.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변화되면, 육신의 공로는 육신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난다. 영이 자기 육의 행위를 흡수했어도 하늘과 연결이 안 되었기에 사망으로 가서 가치 없이 취급받고 사망에서 끝난다.

98. 과일나무 뿌리는 모든 것을 흡수하여 열매로 가지고 간다. ‘육신’이라는 나무는 육의 모든 행위들을 흡수하여 ‘영’으로 가지고 간다. 고로 악한 영의 열매인지, 선한 영의 열매인지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시어 그 행한 대로 악한 영의 열매는 악의 세계로 보내시고, 선한 영의 열매는 선의 세계로 보내신다.

99. 무한한 선의 행위를 해야 된다.

<2011년 8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는 은밀히 보이시고, 은밀히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참고> 꿈에서 외갓집에 갔는데, 그 집에 사촌 동생이 있어 집 뒷마당에 가니 뒷두령을 안 쌓아 놓은 것이 보였다. '왜 두령을 안 쌓지? 잠깐이면 쌓겠는데... 나 같으면 금방 쌓겠다. 두령을 안 쌓으니 비가 오면 집의 벽과 바닥에 습기가 차겠다.' 했다. 이 꿈을 꾸고 잠에서 깼다. 내 방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 이것을 달리 쌓고 싶었다. 고로 즉시 모두 옮겨 한쪽 구석에 천장에 닿도록 쌓았다. 그렇게 하니 그 자리가 넓어졌고 방이 아주 넓어졌다. 바닥을 보니 습기가 차 있었다. 고로 바닥을 뜯어내고 다시 발랐다. 꿈의 계시가 생각났다. 고로 1번 잠언을 썼고, '변화'에 대한 8월 14일 주일말씀을 썼다.

2. 주님의 계시는 자기에 대하여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자들을 깨닫게 하신다.

3. 기도하는 대로 영계로, 육계로 자기 상태를 보여 주신다.

4. 암벽 타듯 생활의 암벽을 타라.

5. 누구나 매일 자기가 할 일을 행하기가 암벽 타기같이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면 험한 암벽도 타듯 매일 힘든 일을 행하면 생활이 되어 할 수 있다.

6. 암벽도 매일 타는 연습을 거듭하면, 암벽 타기도 생활이 되어 평지같이 다닌다. <참고> 영계에서 보니 중학생과 초등학생, 어린 자들 50명 정도가 암벽 타기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 학교 선생이 암벽 타기 시범을 보여 주고 있었다. 산은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명한 암벽 산만 찾아다니며 암벽을 타고 있었다. 내 별장이 그 암벽 산의 높은 곳에 있어 그들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후에 세계 암벽 타기 대회가 있다고 하며 내 집 옆에서 계속 암벽 타기 훈련을 했다. 그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출전한다고 했다. 출전자 한 명을 위해서 전체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내가 보니 암벽 타기 실력이 약간 서툰 것이 보였다. 요즘 섭리사 사람들이 오르지 못하는 것이 있다. 모두 배우고 훈련하여 암벽 타듯이 생활의 산을 오르라고 함이다. 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섭리 사람들을 나타낸 것이다.

7. 전체가 똑같은 훈련을 하고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자를 민족, 세계 대회에 내보낸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8. 생활 속의 암벽 코스다. 기도를 깊이 하여 높이 경지에 오르는 것도 암벽을 오르는 것같이 힘들다. 조금씩 천천히 오르면 된다.

9. 암벽은 반드시 손잡을 곳이 있는지 먼저 보고, 잡을 곳이 완전한지 확인한 후에 잡고, 발 디딜 곳을 확실히 발끝으로 디디고, 온 힘을 다해서 한 발자국 오른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오른다.

10. 생활의 장애물 암벽이다. 앞으로의 전진을 위해서 날마다 못 오른 곳을 올라야 다른 코스를 올라갈 수 있다.

11. 우리 앞에는 저마다 보다 이상세계를 놓고 생활의 암벽이 있다. 오르는 방법을 배우면서 올라야 된다.

12. 암벽 코스는 처음은 산 타기, 다음은 험한 산 등반, 다음은 한 코스씩 암벽 오르기를 반복하면서 오르기 연습을 하고 힘을 연마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3. 생활의 암벽을 타라. 힘든 일, 불가능과 가능성이 겹친 일을 놓고 기어이 오르기 연습이다. 실천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도하기, 찬양하기, 정해 놓고 성경 읽기, 강의 연습하기 등이다.

14. 영계의 깊은 단계는 암벽 등반과 같다. 고로 오르기가 힘들다. 주님은 로프다.

15. 영계는 높은 암벽 산과 같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놓고 마치 암벽을 타고 한 발자국씩 오르듯이, 한 코스씩 오르

듯이 올라야 된다. 오르면 자기 코스는 다 오를 수 있다.

16. 끝까지 기도하기다. 그러면 영계의 암벽 한 코스를 오른 것이다.

17. 자기가 책임분담을 해야 될 일이 암벽의 한 코스다.

18.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기다. 그러면 영계의 암벽 한 코스를 오른 것이다.

19. 성경을 정한 데까지 매일 읽는 자는 영계의 암벽 한 코스를 오른 것이다.

20. 자기가 마음먹고 주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는 자는 신앙의 암벽 한 코스를 오른 것이다.

21. 온종일 매일 자기 할 일을 하는 자는 신앙의 암벽을 오른 자로서 꿈에도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 있다.

22. 암벽을 탈 때 천천히 조심하면서 한 발자국씩 오르듯이, 힘든 일을 할 때는 꾸준히 조심하면서 하는 것이다.

23. 꿈에 나는 싱싱한 상추를 바구니에 가지고 있었고, 건너편 사람은 시금치에 쌈을 싸서 먹고 있었다. 나는 잠 주관을 받는다는 꿈의 계시였다.

24. 주님은 은밀히 보이시고 은밀히 깨닫게 하신다.

<2011년 8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험한 산을 등반해도 계속 암벽은 아니다. 한 코스, 한 코스가 암벽이다. 그 코스를 못 오르면 그 산은 못 오른다. 신앙 코스도 그러하다.

26. 어떤 사람은 쉬운 코스인데도 게을러서 행하지 않음으로 못 오른다.

27. 자기 삶의 코스는 자기가 자세히 살피면 누구보다도 잘 안다. 깊은 기도를 하여 주님께 코치받고 행하면서 오르는 것이다.

28. 암벽을 못 오르겠다고 내려오다가 절벽에 떨어진다.

29. 암벽 산은 오르기보다 내려오기가 더 어렵고 위험하다. 못 오르겠다고 내려오다가는 더 위험해서 떨어진다.

30. 내려오는 길이 쉬운 것 같은데, 암벽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고로 오르지 않고 내려오는 자에게 더 사고가 많이 난다. 섭리사에서도 오르기 힘들다고 내려간 자들이 사고 나서 떨어진 것이다.

31. 오를 때는 험해도 앞이 보인다. 그러나 내려가면 절벽 낭떠러지만 보이고 앞이 안 보인다.

32. 암벽을 타다가 뒤돌아보면 현기증이 나서 떨어진다.

33. 암벽을 오르는 자는 앞만 봐야 된다.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34. 주님은 옆에서 코치하신다. 코치대로만 하면 다 암벽을 오른다. 주님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코스만 오르게 하시기 때문이다.

35. 멀리서 보면 못 오를 것 같다. 바짝 가서 조개가 바위에 착 붙어 있듯이, 자기 몸을 바위 절벽에 착 붙일수록 자신감이 생긴다. 멀리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신앙의 코스도 몸을 착 붙이고 행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36. 마음도 몸도 착 붙이고 행해야 무슨 일이든지 쉽고 가능하다.

37. 사랑하는 자에게 착 붙어 사랑하듯이, 어려운 일들과 엄두가 안 나는 일들과 신앙의 모든 일들도 그같이 하면 쉽다.

38. 모든 일은 멀리서 볼수록 어렵게 보이고,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게 생각된다. 고로 자신감이 안 생긴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몸을 착 달라붙이고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39. 주님도 가까이 가서 자기 몸에 닿게 보고 믿고, 몸을 착 달라붙어서 그 말씀을 행해야 주님이 시키시는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

40. 멀리서 보면 큰 것이 작게 보이기는 하지만, 호기심이 안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41. 가까이에서 보면 작은 것도 크게 보여 겁이 나기는 하지만, 가까이 보니 느껴져 호기심이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42. 모든 일은 멀리서 하면 힘들고, 애인을 끌어안고 사랑하듯 가까이에서 하면 쉽다.

43. 신앙의 일은 좋아해서 사랑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 빌딩을 짓는 소망을 가지고 하듯 과감하게 착수하여 점진적으로 매일 해야 된다.

<2011년 8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44.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 일하시니 우리가 안 하면 주님은 일을 못 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만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45. 일을 안 할 때는 그 일에 대하여 지혜가 안 생긴다. 그 일을 해야 그 일의 지혜와 지식이 생긴다.

46. 신앙의 일이나, 자기 존재를 위한 일이나, 형제를 위해 일할 것을 놓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 먼저 생각부터 하고 해야 된다.

47. 잠언도 먼저 자신이 겪고 깨달은 것 하나를 쓰면, 그다음 잠언이 생각난다. 그다음에 또 쓰고 계속해서 쓰면 홀연히 주님이 말씀하신다.

48. 첫 걸음을 떼야 다음 발 디딜 곳이 보이고 생각난다.

49. 일은 시작해야 일이 보인다.

<2011년 8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것이 정신적인 잠이다.

2. 잠자면 애인이 사랑해도 모른다.

3. 잠자면 주님도 왔다가 그냥 가신다.

4. 사랑도 해 버릇하여 체질이 되어야 쉬지 않고 사랑하게 된다.
5. 같이 사랑하려고 같이 사는 자가 있고, 같이 생활하려고 같이 사는 자가 있다.
6.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행할 것을 행하고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다. 생명력 있는 자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가신다.
7.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목 아프게 소리 지르셔도 우리 육의 귀에는 안 들린다. 우리가 기도하여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일도(一到) 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 귀로 그 음성이 들린다.
8.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먼저 열 마디든, 스무 마디든, 서른 마디든 진정으로 주님께 말하며 기도해야 주님은 말씀하신다.
9. 천 마디 인간의 말에 주님이 한 마디로 대답하셔도 신의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표적이나. 동물이 사람에게 천 마디 해서 사람이 한 마디 대답했다면 얼마나 기적이겠느냐. 이와 같다.
10. 동물이 인간과 대화를 하려면 동물이 먼저 인간과 통하는 법을 배워서 동물 입장에서 손짓 발짓을 하든지, 입으로 소리를 내든지, 인간을 향해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동물 위에 있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동물에게 이야기를 하고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에게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못 듣는다. 그러나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하는 법을 배워 표현하면 신은 바로 알아듣고 말씀하시고 행할 바를 행하신다.

<2011년 8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잠념은 잡생각이다.
2. 잡생각은 잡놈, 잡년에게서 온다.
3. 누구든지 흔히 지난날 자신이 겪은 것을 생각할 때 잡념과 잡생각이 오게 된다.
4.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면 잡념이 온다. 잡념은 뇌의 작용이다.
5. 사탄은 마치 먼지를 일으키듯 잡념과 잡생각을 일으킨다.
6. 기도할 때 조용하면 잡념에 사로잡히게 된다. 고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똑똑히 기도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잡념, 잡놈, 잡년을 가지고 있다.
7. 생활 속에서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뇌가 그것에 집중하니 잡념과 잡생각이 사라진다.
8. 그러나 특히 조용히 혼자 있을 때는 잡념이 생긴다. 정신일도 하고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진다. 집중이 안 될 때는 100m를 뛰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면 자동적으로 뇌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에 잡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9. 잡념은 잡년, 잡놈에게서 온다. 평소에 당했던 일이나 평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화도 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러다 생각이 돌아가게 된다. 거기서 잡념을 끊지 않고 그냥 있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지저분한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마음에 계획이나 한 것같이 잡념이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다 잡념이 잡초같이 자라서 행하기까지 하니 빨리 정신을 온전히 돌려야 한다.
10. 뇌는 평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몸으로 행하지 않은 것도 뇌는 계속 작동을 하며 여러 가지를 구상한다. 고로 생각을 잡아야 된다.

11. 물을 가만히 두면 흘러간다. 개새끼를 가만히 두면 제 맘대로 한다. 이와 같이 뇌도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제 맘대로 굴러가 생각이 이리저리 가게 된다. 고로 개새끼 묶어 놓듯이 생각을 꼭 묶어 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12. 잡념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실천하는 어이없는 자들이 있다. 잡념은 잡것이다. 잡초다. 이것을 실천하면 미치광이가 된다.

13. 특히 기도하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잡생각이 난다. 자기 생각에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떠오른다. 이것이 잡념이요, 잡것이다. 일할 때는 잡념이 거의 없다. 눈도, 몸도 거기에 집중하게 때문이다.

14. 뇌는 생각을 집중하는 데로 쏠린다. 주님을 부르면서 생각을 집중하면 마치 어둔 방에 불을 켜듯이 집중된다.

15. 잡념은 자기가 말로 하나하나 기도하면 없어진다. 고로 가만히 조용히 있지 말고 하나하나 말로 기도하여라.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6. 잡념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은 만물을 대하며 살고, 또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를 대하고 살기 때문에 평소에 그에 해당되는 것이 늘 떠오르는 것이다. 또 뇌는 예전의 일을 기억하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 서운한 말을 듣거나 화를 당했는데 갚지 못한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한 것이 생각나기도 한다. 주의 뜻대로 의롭지 못한 것이나 자기가 당연히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다 잡념이고 잡생각이다.

17. 머릿속에 꼭 차도록 잡념이 올 때 다른 것을 하면 잡념이 없어진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없어진다. 노래를 해도 없어진다. 뇌는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18. 나쁜 잡념은 화가 나게 하고, 분노가 올라오게 하고, 악한 마음까지 유발시킨다. 모두 생각의 잡초다. 그때 그대로 두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주님을 생각하여라.

19. 좋은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 즉 뇌의 잡초들을 싹싹 잘라 없애는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 잡념이 싹 없어진다.

20. 잡념은 자기가 잘 때 꿈으로도 껴지는 때가 있다. 이는 잡꿈이요, 잡놈 꿈이다.

21. 누구나 뇌 속에는 잡념이 있다. 고로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떠오른다. 잡념이 왔을 때 찬물로 머리만 감아도 없어진다. 과자만 먹어도 없어진다. 마음으로 찬양만 해도 없어진다. 성경구절을 외우거나 좋은 것에 집중하면 없어진다.

22. 집중 기도를 하면 정신일도 되어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일절 잡념이 없게 된다.

23. 자기 생각에 잡념이 오고, 잡놈이 오고, 잡생각이 오고, 예전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잡념이 오면 즉시 물리쳐 뇌를 청소하여라.

24. 잡념이 올 때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 튕겨 주기만 해도 싹 사라진다. 잡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큰 일을 친다. 그러니 없애야 한다.

25. 기도할 때 잡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찬양을 하고서 다시 해라.

26. 잡념 때문에 좋은 생각이 못 들어온다. 마귀, 귀신, 잡놈 같은 잡념이 들어오면 가만 두지 말고 즉시 없애라.

27.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는 생각은 모두 잡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잡념아, 물러가라!” 외치기만 해도 없어진다.

28. 잡념의 시간은 인생을 제대로 산 시간이 아니다. 인생을 헛산 시간이다. 잡시간, 잡념 시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잠을 잔 시간만도 못하다. 죽은 시간이다.
29. 잡념으로 평생 잡시간을 보내는 것은 잡념 시간으로 모두 죽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는 돈을 거리에 막 흘리고 다니는 자와 같다.
30. 잡념 시간은 정신병 환자들이 시간을 보낸 것같이 헛된 시간이다.
31.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잡념에 따라 잡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냥 두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니 싹 없애야 된다.
32.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면 잡념이 없어진다. 바쁘면 잡생각이 안 온다.
33. 잡념, 잡념, 마귀는 잡것이 생각나게 하고 잡시간을 보내게 한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잡념 없이 잡시간을 안 보낸다.
34. 잡시간은 잠자는 시간만도 못하다고 했다. 죽은 시간을 보내느니 기도하여라. 그러면 100배, 1000배 더 유익이다.
35. 잡념이 안 들도록, 잡시간을 안 보내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감사하여라.
36. 뇌는 가만히 놔두면 기억 장치에 의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작동한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2011년 8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6. 잡념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은 만물을 대하며 살고, 또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를 대하고 살기 때문에 평소에 그에 해당되는 것이 늘 떠오르는 것이다. 또 뇌는 예전의 일을 기억하니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 서운한 말을 듣거나 화를 당했는데 갚지 못한 것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일이 생각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한 것이 생각나기도 한다. 주의 뜻대로 의롭지 못한 것이나 자기가 당연히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다 잡념이고 잡생각이다.
17. 머릿속에 꽉 차도록 잡념이 올 때 다른 것을 하면 잡념이 없어진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없어진다. 노래를 해도 없어진다. 뇌는 집중하면 집중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18. 나쁜 잡념은 화가 나게 하고, 분노가 올라오게 하고, 악한 마음까지 유발시킨다. 모두 생각의 잡초다. 그때 그대로 두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주님을 생각하여라.
19. 좋은 생각으로 그릇된 생각, 즉 뇌의 잡초들을 싹싹 잘라 없애는 것이다.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면 잡념이 싹 없어진다.
20. 잡념은 자기가 잘 때 꿈으로도 껴지는 때가 있다. 이는 잡꿈이요, 잡념 꿈이다.
21. 누구나 뇌 속에는 잡념이 있다. 고로 가만히 있으면 잡념이 떠오른다. 잡념이 왔을 때 찬물로 머리만 감아도 없어진다. 과자만 먹어도 없어진다. 마음으로 찬양만 해도 없어진다. 성경구절을 외우거나 좋은 것에 집중하면 없어진다.
22. 집중 기도를 하면 정신일도 되어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일절 잡념이 없게 된다.
23. 자기 생각에 잡념이 오고, 잡념이 오고, 잡생각이 오고, 예전에 겪었던 일들 때문에 잡념이 오면 즉시 물리쳐 뇌를 청소하여라.

24. 잡념이 올 때 손가락으로 이마를 톡 튕겨 주기만 해도 싹 사라진다. 잡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큰 일을 친다. 그러니 없애야 한다.

25. 기도할 때 잡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찬양을 하고서 다시 해라.

26. 잡념 때문에 좋은 생각이 못 들어온다. 마귀, 귀신, 잡놈 같은 잡념이 들어오면 가만 두지 말고 즉시 없애라.

27.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는 생각은 모두 잡념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잡념아, 물러가라!” 외치기만 해도 없어진다.

28. 잡념의 시간은 인생을 제대로 산 시간이 아니다. 인생을 헛산 시간이다. 잡시간, 잡념 시간은 아무 유익이 없다. 잠을 잔 시간만도 못하다. 죽은 시간이다.

29. 잡념으로 평생 잡시간을 보내는 것은 잡념 시간으로 모두 죽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는 돈을 거리에 막 흘리고 다니는 자와 같다.

30. 잡념 시간은 정신병 환자들이 시간을 보낸 것같이 헛된 시간이다.

31. 자기가 할 일이 없으면 잡념에 따라 잡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냥 두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니 싹 없애야 된다.

32.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면 잡념이 없어진다. 바쁘면 잡생각이 안 온다.

33. 잡념, 잡놈, 마귀는 잡것이 생각나게 하고 잡시간을 보내게 한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잡념 없이 잡시간을 안 보낸다.

34. 잡시간은 잠자는 시간만도 못하다고 했다. 죽은 시간을 보내느니 기도하여라. 그러면 100배, 1000배 더 유익이다.

35. 잡념이 안 들도록, 잡시간을 안 보내도록 그 시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감사하여라.

36. 뇌는 가만히 놔두면 기억 장치에 의해 자기가 예전에 겪었던 것을 자꾸 생각나게 작동한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2011년 8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이 감동되면 주님께 약속하지만, 마음이 없어진다면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면 주님이 꼭 무엇을 해 주시니 희망을 걸고 약속을 지켜라.

2. 못 지킬 약속이면 차라리 주님께 약속이라도 하지 말지, 주님은 그 약속을 듣고 기대만 하셨다.

3. 주님은 약속을 지킨 자에게 줄 것을 주신다. 고로 그 사람은 인생을 날면서 살고 있다.

4. 사랑 약속을 지킨 자는 사랑 세계에서 살아간다. 사랑 약속을 못 지킨 자는 미움 세계에서 살아간다.

5. 주님께 몸과 마음만 주지 말고, 그 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며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라.

6.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다 주님께 드리기만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요리까지 해서 드리라. 신부가 뭘 하느냐. 신랑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과 같이 살 자는 땅에서부터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모시며 사랑하며 산 자다.

7. 너의 사랑을 주님께 바쳤느냐. 세상에서 최고로 잘한 자다. 이제 자기 사랑을 주님께 요리해서 드리라. 그러면 더

잘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속 시원히 주님을 위해 살아 드러라. 그는 최고로 가장 잘한 자다.

8. 주님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업적을 남겨라.

9. 사람들은 업적을 보고 따른다.

10. 업적이 없어지면 뒤로 가는 인생이 된다. 빈 그릇 인생이다.

11. 빈 그릇은 얹어져도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무엇을 담은 그릇이 얹어지면 빈 그릇이 되어 손해다.

12. 마음 그릇이 비어 있으면 먹을 것이 없어 여기저기 껌떡 댄다.

<2011년 9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3. 놀지 말고 일하면 마음 그릇이 여름철의 댐같이 되어 넘쳐 난다.

14. 주님의 할 일이 너무 많아 때가 되어 사람들을 시키려고 뛰어다니신다. 감동 주어 말씀하셨어도 행하지 않는 자들을 기다릴 수가 없어 다른 자를 시키신다.

15. 급할 때는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재촉하시는 주님이시다.

16. 여름 한 철 일해서 얻은 것으로 겨울 한 철 먹고 사는 농부를 생각하여라.

17.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즉시 해야 겨울철에 뜨거운 밥을 먹듯이 인생 제맛 나게 살아간다.

18. 기다리던 때가 되면 꾀꼬리가 울어 대고, 때 지나면 올빼미가 울어 댄다.

19. 마음이 바쁘면 몸도 바빠야 할 일을 한다.

20. 때 지나면 봄 산 위의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나 예수도 사라지는 몸이 된다. (주 편)

21. 할 일을 한 자는 영웅 대우 받고, 못 한 자는 천대 받고 천한 곳으로 사라진다.

22. 때가 때다. 때 놓치면 영웅 같은 힘이 있어도 소용없다.

23. 제때 할 일을 제때 해야 된다. 제때 해야 불가능이 없는 것이다.

24. 매일 제때 하면, 그 일을 시킨 자가 매일 같이한다.

25. 만물 세상 쳐다보고 겪어 보아라. 모두 제때 존재하다가 사라지지 않느냐.

26. 너의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쳐야 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의 운행의 때를 고쳐야 되겠느냐.

<2011년 9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27. 영계는 육으로 만나는 것보다 영으로 만나는 것이 더 빠르다.

28. 나 예수는 영이다. 육으로 만나는 것보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더 빠르다. (주 편)

29. 사람이 절벽에 서 있을 때 가장 튼튼하고 의지가 될 나무를 잡듯이 나 예수도 믿음과 행실이 가장 튼튼한 자를 의지하고 나의 일을 맡긴다. (주 편)

30.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들은 육으로도 교통하여 마음에 교통이 이루어진다.

31. 사랑으로 인연을 맺은 자는 사랑이 끊어지면 끊어지고, 물질로 인연을 맺은 자는 물질이 끊어지면 끊어지고, 먹을 것으로 인연을 맺은 자는 먹고 마시는 것이 끊어지면 끊어진다.

32. 하나님은 오직 사랑이시다. 주님도 그러하시다.

33. 가진 것이 없어도, 줄 것이 없어도, 마음을 주면 크고도 큰 것이다.

34.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도 어렵게 생각한다. 이것을 깨달아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옥을 내던지고 천국을 얻는 것과 똑같다.

35. 모르면 영원한 죽음과 고통을 끌어안고 좋아한다.

36. 인간의 무지는 자기를 죽이고 남까지 죽이려 간다.

37. 네가 어떤 자를 진정 사랑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네가 돕지 못하는 것은 기도로 도와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한 대로 복이 되게 해 주신다.

38. 말하는 자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심정의 소리를 들어라.

39. 가령 “나는 괜찮다.” 하면 실상 안 괜찮은데 듣는 자를 위해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그 심정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심정의 소리는 글과 다르고 말과 다르다.

40. 주님은 심정을 읽으시고 말씀하신다.

<2011년 9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41. 사연이 깊은 편지는 짧다.

42. 편지는 길수록 잡소리가 많다.

43. 위로 해 준다고 쓴 편지인데, 자기 속마음이 나타나 푸념을 하며 자기 사연을 쓰게 된다.

44. 수고했다고 밥 사 주러 갔다가 도리어 상대가 밥을 사 주어 먹고 온다.

45. 주님을 위로하며 힘 드리려고 했던 자가 도리어 주님께 힘 받고 간다.

46. ‘진정’은 받으면 힘이 오고, ‘가식’은 받아도 힘이 빠지게 한다.

47. 진정한 사랑은 받아도 힘이 나고, 줘도 힘이 난다.

48. 진정한 말씀은 갈수록 힘이 나고 행할수록 영도 육도 살아난다. 비진리는 처음에는 바닷고기처럼 뛰다가 나중에는 모래 해변 위의 고기처럼 쭉 뻗는다.

49. 비진리를 듣는 자는 스스로 힘이 나서 뛰게 하시고, 참진리를 듣는 자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어 뛰고 기

빠르게 하신다.

50. 자기 혼자 좋아서 뛰는 것은 자력과 같아서 바다에서 뛰던 물고기를 모래사장에 던졌을 때 처음에는 뛰다가 쭉 뻗듯이 되고 만다.

51. 비진리의 종교와 교파는 지구촌에서 말썽만 부리다가 사라진다.

<2011년 9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을 믿으면서 사는 자라도 주님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2. 글씨를 써도 틀리게 쓰면 죽은 글씨이듯이, 주의 일을 해도 그 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심정을 맞춰서 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그 일 또한 죽은 일이 되어 가치가 없고 공력도 없다.

3. 글을 쓸 때 어떤 사건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썼다 하자. 이는 죽은 사건의 글이다.

4.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말은 죽은 말이다.

5. 주님은 한국어 한 글자의 모음이라면, 우리는 자음이다.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못 알아보니 죽은 글씨가 되듯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일체 되어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면 그 신앙도 죽은 신앙이며 그 일도 죽은 일이 된다.

6. 주님과 같이 하면 주님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사연을 말해 줄 수 있다. 고로 생명력이 있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안 하면 자기 사연만 말하게 되니 생명력 없는 말이 되고 인본주의가 된다.

7. 주님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한다.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된다.

8. 자기 혼자 한 일은 죽은 일이고, 자기 혼자 산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9. 중심자를 제대로 모르고 그를 중심하지 않는 자는 죽은 신앙인이다. 시체다.

10. 예수님 주관권에서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자기 혼자 알아서 한 것은 자기가 한 일이 된다. 주님과 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 한 일만 주님과 같이 한 일이 된다.

11. 중심자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주님과 일체 되지 않은 것과 같다.

12. 주님과 같이 한 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한 일은 자기의 일이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다. 중심자와 하나 안 되니 예수님의 영광 하나 되지 않아 자기 혼자 행하는 것이다.

13. 주님의 일을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한 자가 될 수 없고, 실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한 자가 된다. 고로 일만 저지른다. 주님은 이를 보시고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

14. 매일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님께 묻고 감동받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해야 된다.

<2011년 9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일은 주님 뜻대로 쓰는 데 쓰지 않으신다.

16. 주님과 같이 온전히 행한 것만 주님의 온전한 작품이다.

17.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에는 주님과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과 같이 하지 않은 것은 수준이 낮고, 그 차원이 육적 차원이고, 은혜가 없고, 주님의 역사도 없고,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신다.
18. 주님과 같이 한 일은 일생 동안 그것에 대해 말할 때마다 주님께 대해서, 그 사연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다.
19. 자기가 한 일은 평생 말해도 자기 이야기뿐이다.
20. 주님과 같이 하면 금 같은 가치와 공력이 있지만, 자기 혼자 한 일은 돌이나 흙 같은 가치다. 그 공력도 자기에게 속한 공력에 불과하다.
21. 이왕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힘든 일 하는데 주님과 같이 하면 그 공력이 하늘까지 치솟고, 주님과 같이 안 하면 그 공력이 땅바닥에 붙어 있다.
22.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한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주님께 손해가 가는 일을 한다. 소경이다.
23.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무지하고 무식한 일을 하는 자다.
24. 주님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 놓았어도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해 놓았으므로 받지 않으신다. 주인의 일을 했어도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 놓아야 주인이 받는다. 주인의 얼굴을 그렸어도 주인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야 받는다. 원치 않는 것은 받지 않는다.
25. 주님과 같이 한 자만 주님을 신랑으로 맞게 되고, 주님도 그를 신부로 맞으신다.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행한 자는 형제 입장에서, 종 입장에서 주님을 맞게 된다.
26. 주님과 같이 하지 않은 일은 주님 법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동산에 가 있지 못하고, 종들이 가는 종의 동산이나 자녀들이 가는 자녀의 동산에 가 있다.
27. 주님께 하나하나 묻고 주님과 같이 행하는 자에게만이 주님의 손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간다. 주님의 손과 마음이 갈 때마다 주님은 그와 함께하신다.
28. 마치 주님이 써 놓으신 글을 그대로 보고 한 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듯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매사에 주님 마음같이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
29. 주님과 같이 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다.
30. 주님과 같이 한 일만 살아 있는 일이다.

<2011년 9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31.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신 일은 그 가치가 점점 무가치가 되어 밤이 되고, 주님이 같이 하신 일은 점점 빛을 발하여 광명한 세계가 된다.
32. 섭리의 말씀은 주님과 같이 했기에 개인·민족·세계로 점점 펼쳐져 나가고, 섭리사는 점점 광명한 세계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33. 시대에 따라 주님과 같이 하지 않은 기성의 성경 해석은 점점 해가 지고 밤을 맞아 쓸쓸한 광야 별판이 되었다.

34. 말씀은 빛이요, 광명이요, 생명이다.

35. 잠언도 주님과 같이 쓰지 않으면 자기 잠언이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간다. 고로 주님은 말씀을 땅의 사명자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에도 기록해 놓으신다.

36. 주님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면 그 넘어짐이 극심하다.

37. 주님의 일인데도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심정에 반대하는 자요, 주님의 마음에 반대하는 자다. 주님을 반대한 자는 영계에서 보면 그 마음이 보인다.

38. 주님의 일인데 주님과 같이 하지 않는 자는 인본주의자요, 지극히 육적인 자이므로 사탄이 침범하여 사탄과 같이 하여 사탄 작품이 되게 한다.

39. 주님과 같이 먹고 입고 자고 웃고 울면서 살아야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40.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주님과 같이 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님의 기대가 어긋나 대실망을 하신다. 이런 자들은 주님을 제대로 맞지 못한 자들이다.

41. 주님이 인간을 구원해 놓으시고 최고 원하시는 일이 있으니, 인간이 주님과 같이 행하는 일이다. 주님과 같이 행할 때 구원이 완성되고, 인간의 육과 영이 마지막 변화를 일으켜 하늘나라의 형상이 된다.

42. 주님과 같이 하는 자는 시대 중심자다. 주님께서 시대 중심자를 표상으로 보내셨다. 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하는 것인지 가르쳐 준다. 그러나 하는 자와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준다.

43. 주님과 같이 행하지 않는 자의 영혼을 보면 난쟁이이고, 키가 작고, 인물이 볼품이 없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의 영은 저렇게 못 생겼지?” 한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와 같이 하지 않고 나 예수와 같이 하지 않아서 저 모양이 되었다. 천국에 저런 자가 있으면 모두 보고 기분 나빠 하니 천국에 못 오게 한다.” 하셨다.

44.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 공적도 작고 모든 것도 작다.

45. 매일 매시간 주님과 같이 멋있게 사는 자는 그 영도 멋있게 성장되어 아주 아름답게 되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쳐다본다.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46. 이성 타락한 영은 다 떨어진 걸레 같은 옷으로 하체를 가리고 부끄러워 사람들을 피해 다닌다. 그 얼굴도 어둡게 변했고, 얼굴형과 체형이 뒤바뀌어 그 모습이 흉측하고 추하다.

47. 사탄은 흔히 섭리사 남자들을 꺾어 “너는 선생의 후계자다. 내가 너를 기른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계시를 받아라. 나는 예수다. 하나님이다.” 하며 계시를 주고 “선생에게 보내면 안 된다.” 하며 계속 잘못된 계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섭리사 여자를 찾아가게 하여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라. 이것이 너를 위한 나의 뜻이다.” 하고 꺾는다. 그런데 묻지도 않고 할 짓 다 한다. 후에 주님께서 그 행위를 심판하시사 모두 찾아내신다. 그리고 선생에게 보고하게 하신다. 이미 여자는 하와처럼 도망가 있고, 남자는 아담처럼 숨어 있다. 이들은 평신도가 되어 평생 겨우 자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야 된다.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이 보낸 자와 하나 되지 않으니 사탄에게 속은 것이다.

48. 사탄의 핏을 받은 자는 사탄 주관권 안에 살기 때문이다.

49. 계시를 받고 선생에게 안 보내고 확실히 분별받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그 계시가 맞다고 인정하며 사는 자들은 사탄이 은밀히 주관하여 사탄과 함께 살게 된다.

50. 섭리사에서 선생이 인정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를 힐문하는 계시는 모두 다 사탄의 계시다. 주님은 섭리 전체의 계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해 주셨다. 계시로 충성자를 헐뜯고 흠잡는 자들을 파악해 보니 90% 이상이 이성 타락을 한 자들이었다. 사탄은 자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몸을 통해 선생이 세운 충성자를 헐뜯는다. 주님은 이런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평소에 나와 네가 세운 자에게 감정이 있던 자이니, 특별히 다뤄라.” 하셨다. 사탄은 헛된 계시를 주어 충성자를 힐문한다. 그런 계시를 받는 자들은 뿌리 없는 인본주의 신앙인들이다.

51. 사탄은 그냥 못 꺾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선생이다.” 하면서 계시한다. 계시를 주는 자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선생이라고 말하며 그 주권을 내세우며 계시를 준다.

52. 사탄은 그냥 거짓말하면 다 알아차리니까 옳은 말을 하면서 꺾는다. 사탄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대로 말하며,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계시를 한다. 사탄은 그 계시를 믿는 자의 욕을 쓰고 온전히 행하는 자를 힐문한다.

53. 사탄은 욕을 힐문했다. 들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힐문한다. 역시 사탄은 무식하다.

54. 한 번 사탄의 주관을 받은 자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100% 인정하지 않는다.

55. 사탄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한 자도 어둠의 행위를 한 자다.

<2011년 9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56. 주님과 같이 한 일은 작은 일이라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며, 역사가 흘러가면서 두고두고 이야기하면서 말해 줄 일이다.

57. 주님과 같이 만든 나룻배가 자기 혼자 만든 군함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대결작품이다.

58. 주님과 5리를 동행한 것이 혼자 1000리를 간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59. 주님과 같이 한 일과 주님이 시켜서 한 일은 작더라도 대결작품이다.

60. 나무 한 그루를 가꿔도, 사람 한 명을 길러도 주님과 함께 한 것은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유명한 유적이 되고 역사에 길이 남게 된다.

61. 그곳이 초라하거나 보잘것없어도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 역사하신 곳은 작지만 지극히 큰 곳이다. 결국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 되고 만다. 주와 일체, 중심자와 일체다.

62. 주님과 같이 하면 처음에는 밤 같아도 나중에는 빛나는 낮이 되고, 주님과 같이 안 하면 처음에는 낮 같아도 나중에는 점점 밤이 되어 어둠에 묻히게 된다.

63. 선생과 같이 한 자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주님께서 점점 광명한 곳으로 오르게 하고 주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하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르게 하신다. 그러나 선생과 같이 안 한 자는 아무리 날면서 살았어도 주님께서 점점 어둠으로 몰아내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

64. 주님이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고 자기 앞에 보이는 자만 중심하는 자는 인본주의자다. 그 영도 크지 않고, 그 영의 열매도 보잘것없다.

65. 주와 같이 사랑하고, 주와 같이 대화하고,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주와 같이 쓰고, 주와 같이 말하고, 주와 같이 행하여라. 그러면 표적이다. 모든 일이 힘들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

<2011년 9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해야 사랑하는 자를 볼 수 있다.
2. 사람들은 남의 입장과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과 자기 고통만 생각하고 말한다.
3. 주님 앞에서도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 주님을 신이라고만 생각하여 그 입장과 심정의 아픔을 생각지 않는다.
4. 예수님을 자기 애인으로 생각하며 조그마한 것도 마음 아프게 하면 그 마음이 아프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과 대화도 된다.
5. 주님은 신이시지만 그 심정을 알아줘야 대화가 되고 통한다.
6. 주님 뜻대로 해야 주님과 통하고 동행하게 된다.
7. 자기 생각대로 가면 사망길이다.

<2011년 9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쳐다보면서 사용하는 곳은 풍경이고, 사용하면서 쓰는 곳은 정원이다.
2.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지옥을 섬기는 자다. 자기가 섬기는 자를 열심히 섬기면 자기가 섬기는 자가 거하는 나라에 가게 된다.
3. 불을 섬기는 자는 불로 가고, 물을 섬기는 자는 물로 가고, 산을 섬기는 자는 산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4.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으로 참고 견디며 이기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보람이 없고, 좌절하게 된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자기 희망을 만들면서 살면 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5.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안 간다.
6.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안 간다.
7. 희망과 할 일을 만들어 주어라.

<2011년 9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든지, 혹은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2.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이는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
3. 선하게 할 수도 있고, 악하게 할 수도 있다.
4.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참지 못할 수도 있는 양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결정하기에 달려 있다.

5. 욕신이 행한 것만 행위가 아니다.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행위다.
6.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행위로 보시고 의로 보신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한 것도 행위로 보시고 심판하신다. 이와 같이 사람이 나쁜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으로 보신다.
7. 마음으로 이성 관계를 해도 이성 관계를 한 마음의 죄로 보신다.
8. 나도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옆의 사람도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한다. 그 여자와 나와 관계는 애인 관계가 아니고 한 형제 관계다.
9. 신랑만이 애인 관계다. 형제는 형제 관계다. 이를 벗어나면 죄가 된다.
10. 관계대로 관계하여라. 애인과 형제를 구분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11. 생각이 떠올라도 옳지 못한 생각들은 지우고 없애는 것이다. (성)
12. 힘들게 얻어야 보람 있게 쓴다.
13. 은혜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2011년 9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줄만 알지, 벗을 줄을 모른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인간의 죄의 짐과 영적인 것에 해당되는 각종 짐을 벗겨 준다.
2. 인간의 영적인 것에 해당되는 각종 무거운 죄들과 걱정, 근심, 염려의 짐들을 벗으려면 첫째, 주님께 죄에 대해 배운다. 둘째, 회개한다. 셋째,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로써 각종 죄의 짐들을 벗게 된다.
3. 인간이 교만하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자기를 큰 자라고 생각한다. 교만한 자는 심판의 위치에 서게 된다.
4. 전능하신 주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 어떤 일이든지 쉽고 이상적이다. 인간의 방법은 아무리 좋고 이상적인 방법이라도 역시 인간의 주관권 안에서 좋은 방법일 뿐이다. 고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5. 무거운 물질이 있다 하자. 인간의 방법은 그 물질을 햇볕에 말려서 보다 가볍게 가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물질을 차로 운반하여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쉽게 가져가는 것이다.
6.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방법으로 해야만 쉽고 가벼운 삶을 살게 된다.
7. 육은 세상에 속한 물질의 짐을 지고, 마음과 영은 정신적인 짐과 영적인 짐을 지게 된다.

<2011년 9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오는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2. 기도함으로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3. 남녀가 서로 좋아서 사랑할 때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서로 사랑에 미쳐서 좋아서 사랑한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도우신 것을 생각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미쳐서 좋아 일생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참사랑이다. 계속 일생 동안 그같이 사랑해야 된다. 시켜서 하는 사랑은 의무적 사랑이다.

4. 지난날 사랑해 준 것을 잊으면 미워진다. 멀리하게 된다.

5. 지난날 사랑을 잊으면 남남 된다. 인연도 사랑도 모두 날아간다.

6. 동물이 자기를 기르는 사육사가 밥을 주고 사랑해 준 것을 잊으면 해하는 자로 보고 으르렁대고 물려고 한다.

7. 동물이 사육사가 자기에게 밥을 주고 사랑해 준 것을 잊지 않으면 사육사를 좋아하면서 물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도 그러하다.

8. 동물은 사육사가 자기를 사랑해 주고 밥 준 것을 금방 잊는다. 동물이기 때문이다. 고로 사육사는 기르는 동물에게 밥도 자주 주고, 많이 관심을 가져 기른다. 그것을 잊으면 동물은 야수가 되어 사육사를 해한다. 인간들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잊으면 야수같이 되어 하나님과 주님을 대한다.

9. 사람이라도 지능이 떨어지면 짐승이 된다.

10. 표적을 일으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희망이다. 지겹지 않다. 기쁨과 이상세계다.

11.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잊어버리고, 생활에서 잊어버리고, 몸에서 잊어버린다.

12. 생각으로 시작한다. 몸으로 실존을 이룬다.

13. 서로 생각하면 떨어져 있어도 늘 만나는 것이다.

14. 하나님과 예수님도, 땅의 사람들도 '생각'으로 몸이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15. 생각이 끊어지면 죽은 자다.

<2011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께 도와 달라고 해 놓고, 실상 생활할 때는 자기 인성과 자기 수준대로 행한다.

2. 자기가 절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가지 않으면 자기 생각 못 버리고 행한다.

3. 사탄은 주님을 가리는 일을 하여 못 보게 한다. 주님을 가리는 일이란, 오직 주님을 절대시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일이다.

4. 자기 말이나 행실로 주님을 가리기도 한다. 고로 제대로 해야 된다.

5. 목숨 걸고 주님과 그가 보낸 자를 드러내야 된다.

6. 주님과 그가 보낸 자는 빛이다. 빛을 가리면 사탄이 어둠을 타고 온다.

7. 자기를 드러내고 주님을 가리는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면 옷을 거지같이 입고 다닌다.

8. 주님을 증거하고 연구하여라. 그 위대함과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을 향한 사랑과 인간을 확실히 도와주시는 것과 그 말씀 등 수십 가지를 증거하여라.

9. 목회자를 중심하면 줄이 약하여 결국 끊어진다. 주님과 시대 사명자라는 동아줄을 꼭 잡아야 된다.
10. 중심자가 빠지면 주님이 역사하셔도 평범한 역사밖에 못 하신다.
11. 중심자가 있으면 그 힘과 차원으로 역사하신다.
12. 주님은 영이시니 자신이 세운 표상자를 통해 나타나 역사하시고, 그 표상자가 사연이 있어 못 하면 그 표상자가 인정하는 표상자를 세워 주님의 영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나타나 심정의 말씀을 하신다.
13. 주님은 신령하시니 신령해야 주께 붙는다.
14. 모두 기준자를 따라 하면 된다. 기준은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워 전체를 맞추게 하신다.
15. 기준자는 주님과 같이 서 있다. 기준자는 눈에 보이니 그를 따라 가는 것이다. 그 기준자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다.
16. 기준자를 따라 앞뒤를 맞추듯 영과 육을 맞추어라. 주님은 기준자에게 방법을 주신다. 고로 기준자에게 맞춰서 따라 하라는 것이다.
17. 영은 육을 통해 말하고 보여 주어 따라가게 한다. 기준자는 육으로서 시범을 보인다.
18. 보이는 자는 육이요, 안 보이는 자는 영이다. 보이는 자를 따라 안 보이는 자에게 가야 된다.

<2011년 9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9. 전도할 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해야 생명의 결실이 잘 이루어진다.
20. 전도는 주님께 바짝 붙어서 해야 된다.
21. 포기 없는 생명 구원이다.
22.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직접 생명을 전도하는 것, 강의하는 것, 관리하는 것, 전도자를 지원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구원받을 자를 위해 대신 회개해 주는 것 등이다.
23. 실천은 위대하다.
24. 성경을 잘못 풀고 인본주의로 가르친 자들의 죄는 너무도 크다. 많은 자들로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 믿게 함으로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영을 살인한 죄로서 너무 큰 죄다.
25. 지도자는 잘하면 공력을 많이 쌓지만, 잘못하면 죄도 많이 짓게 된다.
26. 지도자가 중심과 하나 되지 않으면 자기중심이라 바로 교체해야 된다.
27.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 준 자를 증거한다. 자기를 보내 준 자를 증거하지 않으면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보내 준 자를 증거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다.
28.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능력도 없고 표적도 없다.
29. 예수님이 보낸 자 때문에 새 역사 자부심이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새 말씀이 선포되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차

원 높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30. 주님은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이 시대에 보낸 자는 새 역사에만 있다. 그 시대에 한 명이다. 주님은 그를 통해 새 역사를 펴신다.

31. 주님은 어디서든지 믿을 수 있으나 주님이 보낸 자는 한 사람이요, 주님이 보낸 자를 통한 역사는 하나다.

32. 외치는 자가 세례요한같이 자기를 외치고 자기를 보이면 결국 세례요한 짝이 된다. 중심자를 제대로 증거해야 중심자가 자기를 보내신 주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다. 주님이 보낸 자만이 주님을 제대로 증거한다. 고로 제대로 생명이 결실한다.

<2011년 9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내가 맡은 일을 다 끝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 말고,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 예수와 함께 행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라.

2. (주 편)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으로 무거운 짐을 벗겠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지친다. 나와 같이 하면 과정 중에 무거운 일의 짐을 벗어 일이 쉽고, 일을 하다가 쉬어 가는 격이 된다.

3. (주 편) 일 다 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풀고 피곤을 풀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 중에 나 예수와 같이 하자. 그러면 일하면서 마음도 풀리고 피곤도 풀린다.

4. 농부가 하루 일을 속 시원하게 다 해 놓고 쉬겠다고 목적을 두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다 끝날 때까지 피곤하고, 일이 지겹고, 일에 지쳐 쓰러진다. 주 앞에 사명의 일을 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5. 주님과 같이 일하면, 일하는 과정 중에도 피곤함과 지겨움과 힘든 것이 풀리고 놀면서 한 격이 된다.

6. 일을 빨리 하여 속 시원히 끝내 없애 버리고 일 끝난 후에 쉬겠다는 목적으로 하면 일에만 빠져 힘을 다 뺏기고 힘도 맥도 없이 곤고하다.

7. 가령 애인과 같이 일하는데 일을 다 끝내 놓고 같이 먹고 쉬자고 하며 둘이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면 피곤하여 결국 일이 끝나고서도 같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지쳐서 쓰러진다.

8. 애인과 같이 일하면서 대화도 하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면 일에 지치지 않고 잘하게 되고, 일이 끝나고 나서도 서로 좋은 시간을 갖게 된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도 주님과 같이 하여라.

9. 가령 애인과 1000리를 가야 할 하루의 일을 놓고 10분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가서 편히 쉬자고 하고 가면 가다가 지쳐 둘 다 쓰러지고, 목적지에 다 간 후에 시간이 있어도 지쳐서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여 둘 다 쓰러져 길바닥에서 자게 된다.

10. 목적지까지 가는 첫 발자국부터 애인과 같이 대화하면서 의논하면서 쉬면서 가면 천릿길도 피곤하지 않고, 목적지에 가는 일까지 하게 된다. 이처럼 애인과 같이 일도 하고 일의 과정 가운데 쉬기도 하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니 많이 쉬고 일도 많이 하게 된다. 주님과도 이같이 살아야 된다. 일을 맡긴 사명자와도 그리해야 된다.

<2011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1. 일은 죽는 날까지 있다. 사람은 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12. 일을 다 해 놓고 쉬려고 하는 자기 생각에 속지 말아라.

13. 인생 하루를 놓고 봐도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 일을 다 해 놓고 쉬려면 일이 끝났을 때 피곤하여 쓰러져 잠자게 된다.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14. 일하면서 주와 같이 대화하고, 주와 같이 쉬고, 온종일 마음과 몸의 피곤을 그때그때 풀면서 하여라. 그러면 일도 쉽고, 지치지 않고, 일에 물리지 않고, 일에 진절머리 쳐지지 않고 하게 된다.

15. 오죽해야 주님이 이런 잠언을 주시겠느냐. 내 오죽해야 이런 잠언을 쓰겠느냐.

16. 새벽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그 날의 일이 끝난다. 그러고 나서 쉬려 하니 피곤해서 쓰러진다.

17. 인생, 일 다 하고 죽은 자는 없다.

18. 인생, 일하다가 죽는다.

19. 일 다 해 놓고 쉰다는 생각에 속지 말아라.

20. 일만 하다가 죽는 자는 바보다.

21. 일 다 해 놓고 놀러 간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22. “일 다 해 놓고 어디 놀러 가야지.” 하는 자는 자기에게 또 속는다.

23.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같이 일하면서 과정 중에 쉬고 먹고 즐기자.

24. 일하다가 일을 집어던지고 놀고 와서 일하여라.

<2011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일 다 해 놓고 어디 가서 쉬고 온다고 하지 말아라. 또 속는다. 그러다가는 일하다가 죽는다. 피곤할 때는 일하다가 그냥 놓고 가서 쉬고 와서 일하여라.

26. 하루해를 놓고 정한 일을 다 하고 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일하다가 쉬고 싶으면 일을 못 해도 쉬다가 하여라. 그래야 힘을 얻고,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서 나머지 일도 능히 한다.

27. 일 다 해 놓고 쉬려는 사고와 철학의 향아리를 주님의 철장으로 깨부셔라.

<삽화 : 일 다 해 놓고 쉬려는 사고와 철학의 향아리를 깨부수는 모습>

28. 일 다 해 놓고 주님과 같이 쉰다고 수천 번을 결심했는데, 결국 일은 다 했어도 못 쉬었다.

29. 일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같이 쉬면서 하여라. 쉰다는 것은 주와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래야 온종일 일하면서 주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쉬게 된다.

30. 일에 속지 말아라.

31. 일하는 법을 모르면 일이 짐이 되기도 하고, 죄 짐이 되기도 한다.

32. 이제 일을 할 때는 누가 애원해도 오직 주님이 시키는 방법대로만 하자.

33. 사람들이 애원해도, 일의 짐 보따리를 내게 맡겨도 주님이 같이 해 주신다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길바닥에 내던지고 가자.

34. 오직 주님이 같이 해 주신다고 하는 일만 해야 된다.

35. 필요 없는 일은 죄 짐과 같이 무겁다.

36. 주님과 같이 대화하며 하지 않는 일은 끝날 때까지 일의 짐이 양어깨를 누르고 마음을 누른다.

<2011년 9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37. 처음 볼 때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보이던 것도 자주 보면 보통으로 보인다.

38. 처음 볼 때 놀라던 미인도 자주 보면 보통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미인이 변한 것이 아니다. 보는 자의 눈과 마음에 면역이 되어 무감각해진 것이다.

39. 사람이 어떤 것을 처음 볼 때는 감격하며 놀라던 것도 자주 보면 보통으로 본다. 이는 사람의 눈과 정신과 마음이 첫 감각을 잃었기 때문이다.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40. 첫사랑의 감각을 잃으면 맛이 간다.

41. 웅장한 산도, 귀한 작품도 자주 보면 눈 밑으로 본다.

42. 하늘이 보낸 자도 처음에는 크게 보다가 자주 보니 작게 보고 그 말도 작게 여긴다. 그러다가 자신만 난쟁이 신앙인이 된다.

43. 사람은 그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이제 없다는 것을 알고 봐야 놀라고 감격하며 만족한다.

44. 아무리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도, 환경이라도, 귀중한 보화라도, 미인이라도 자기 몸에 접하듯 접하며 살면 보통으로 보여 보통으로 대하며 무감각하게 산다.

45. 바닷물도 자주 보고 살면 하나의 댐이나 호수로 보인다.

46. 처음 보는 자는 댐이나 호수만 봐도 소리치며 놀란다. 그러나 자주 보는 자는 바다를 봐도 크게 안 본다. 인간의 인식관은 이와 같다.

47. 하나님도 처음 보면 놀라 쓰러지고 충격 받을 것이다. 그러다 자주 보면 사람같이 볼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이 그럴 줄 알고 안 나타나신다. 자주 나타나면 인간같이 보기 때문이다.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말을 믿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만 보이신다. 천국에 가도 필요한 때만 보이신다.

48. 귀한 자도, 미인도, 미남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도 자주 보면 보통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같이 살면 다른 일반 사람이 더 호기심 있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기도 한다. 사람의 뇌, 생각, 마음은 항상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희망하기 때문이다.

49. 만왕의 왕, 전능자 예수님도 사람들이 믿으면서 처음에는 신같이 본다. 그러다 점점 자기 수준으로 보고 사람같이 본다. 이는 사망의 절벽에 떨어진 것이다.

50. 귀한 자를 귀히 보고 대하지 않으면, 귀한 자는 그 사람을 떠나가고 사라진다.

51. 귀한 자는 자기를 귀하게 보고 대하는 자에게 간다. 주님도 그러하시다.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52. 어떤 사물을 처음에는 귀하게 보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고 놀라며 대하다가도 자주 보니 귀한 것을 모르고 보통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 귀한 것을 멀리하게 되고 가진 것들을 헐값에 팔기도 한다. 고로 귀히 보는 자가 그것을 사 가서 귀히 쓴다.

53. 보물은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 전의 것을 팔아 더 좋은 것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의 귀한 사명자는 하나다. 고로 귀히 안 보면 무지로 뺏기게 된다.

54. 자기 사명이 귀한 것을 모르면 뺏긴다. 주님은 그 사명을 평생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다.

55. 주님과 선생이 사명을 준 자를 귀히 여겨야 자기도 그와 일체 되어 빛이 난다.

56.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귀한 것도 보통으로 본다면, 그 작품을 만들어 준 자도 그같이 보통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가치를 상실한 무지한 자의 위치로 탈락된다.

57. 전능자가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대하고 관리하는 자에게만이 그 기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

58. 하늘의 사명자는 사명에 있어 변함이 없다. 다만 사람이 자주 보니 면역이 되어 낮게 보통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독수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독수리요, 호랑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랑이다. 그러나 보는 자가 자주 보니 독수리를 보통 날짐승으로 보고, 호랑이를 보통 동물같이 본다. 주님도,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오히려 시대에 따라 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59. 사람이 면역이 되는 것이 무섭다. 이는 하나의 중독성을 유발한다.

60. 귀한 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와는 뜻을 못 펴니 멀리 날개 치고 날아가서 자기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간다.

61. 인간이 무지하면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귀히 여기지 않는다.

62. 주님이 보낸 자가 귀한 것을 모르는 자는 가치를 상실한 인생을 살다가 가치 없이 끝난다.

63. 가치를 모르고 산 자는 무가치하게 살다가 그 영도 1원짜리도 안 되는 무가치한 영이 되어 버린다.

64. 귀한 자를 귀히 보고 대해야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하여 변화를 이루며 점점 귀한 자가 된다.

65. 귀한 자를 알고 대해야 자기도 귀한 자에게 붙어 가정에 새순이 나서 자라나게 된다.

66. 귀한 과일나무를 아는 자는 그 한 가지를 꺾어 자기 집에 심어 귀한 나무를 만들어 열매를 열게 한다.

<2011년 9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52. 어떤 사물을 처음에는 귀하게 보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고 놀라며 대하다가도 자주 보니 귀한 것을 모르고 보통으로 생각한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 귀한 것을 멀리하게 되고 가진 것들을 헐값에 팔기도 한다. 고로 귀히 보는 자가 그것을 사 가서 귀히 쓴다.

53. 보물은 더 좋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얻기 위해 전의 것을 팔아 더 좋은 것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하늘의 귀한 사명자는 하나다. 고로 귀히 안 보면 무지로 뺏기게 된다.
54. 자기 사명이 귀한 것을 모르면 뺏긴다. 주님은 그 사명을 평생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신다.
55. 주님과 선생이 사명을 준 자를 귀히 여겨야 자기도 그와 일체 되어 빛이 난다.
56.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귀한 것도 보통으로 본다면, 그 작품을 만들어 준 자도 그같이 보통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가치를 상실한 무지한 자의 위치로 탈락된다.
57. 전능자가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대하고 관리하는 자에게만이 그 기쁨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눈에서 떠나지 않는다.
58. 하늘의 사명자는 사명에 있어 변함이 없다. 다만 사람이 자주 보니 면역이 되어 낮게 보통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독수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독수리요, 호랑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랑이다. 그러나 보는 자가 자주 보니 독수리를 보통 날짐승으로 보고, 호랑이를 보통 동물같이 본다. 주님도,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오히려 시대에 따라 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
59. 사람이 면역이 되는 것이 무섭다. 이는 하나의 중독성을 유발한다.
60. 귀한 자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와는 뜻을 못 펴니 멀리 날개 치고 날아가서 자기를 귀히 여기는 자에게 간다.
61. 인간이 무지하면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귀히 여기지 않는다.
62. 주님이 보낸 자가 귀한 것을 모르는 자는 가치를 상실한 인생을 살다가 가치 없이 끝난다.
63. 가치를 모르고 산 자는 무가치하게 살다가 그 영도 1원짜리도 안 되는 무가치한 영이 되어 버린다.
64. 귀한 자를 귀히 보고 대해야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하여 변화를 이루며 점점 귀한 자가 된다.
65. 귀한 자를 알고 대해야 자기도 귀한 자에게 붙어 가지에 새순이 나서 자라나게 된다.
66. 귀한 과일나무를 아는 자는 그 한 가지를 꺾어 자기 집에 심어 귀한 나무를 만들어 열매를 열게 한다.

<2011년 9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67.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도 처음 첫사랑 때같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놀라서 대하며 살지 않으면 결국 뺏긴다.
68. 자기 영적 육적 수준이 낮아지면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사랑도 낮게 보이고 보통으로 보인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69. 주님은 자신을 놀랍게 보고 대하고, 감격하며 대하고, 좋아서 대하는 자에게로 가신다.
70. 주님을 귀히 보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하루하루 점점 다가온다.
71. 주님을 뺏기면 마귀와 악인들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제야 그 세계를 벗어나려 하지만 어렵다.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처음같이 감격 감사하며 놀랍게 대하지 않은 연고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귀히 여기지 않은 연고다.

72. 주님을 오래 믿고 오래 대했어도 늘 처음 봤을 때처럼 감격하고 감사하며 대하면, 주님은 늘 다른 모습으로 차원 높여 대해 주신다. 그리고 남 몰래 자꾸 주실 것을 주신다.

73.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주 본다고 보통으로 본다. 이는 자신이 정신의 수준과 행동의 수준을 높이지 않았기에 보통으로 보이고 느끼고 대하는 것이다.

74. 자신이 매일 보고 들었기에 눈과 정신이 면역이 들어 보통으로 볼 뿐이지, 귀한 작품은 여전히 귀하고, 미인은 여전히 아름답고, 큰 자는 그 사명이 여전히 크다.

75. 큰사람을 처음 볼 때는 놀라고 좋아하며 감격하며 대한다. 그러다 자주 보면 보통으로 보고 보통으로 대한다. 이는 그와 같이 뛰고 행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다.

76. 큰사람도 처음 보면 놀라고 두렵고 감격하지만 자주 보면 보통으로 보인다. 이는 큰사람이 작아진 것이 아니요, 보는 자가 실력과 능력과 위력도 없으면서 자꾸 보니 눈만 높아졌을 뿐이다. 자기도 큰사람같이 자꾸 해 봐야 그가 귀한 자라는 것을 갈수록 더욱 알게 된다.

77.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귀한 것도 자주 보기만 하면 보통으로 보인다. 자기가 귀한 것을 알고 써야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고 귀하게 보인다.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눈만 높아진다.

<2011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할 일을 못 하고서는 갈 곳을 갈 수가 없다.

2. 험한 곳도, 편한 곳도 거기에 해당되는 할 일을 해야만 가게 된다.

3.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자기를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하기도 하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기도 한다.

4. 닦아 놓지 않은 길은 항상 험한 길이듯, 자기 신앙의 길도 닦아 놓지 않으면 항상 험하다.

5. 한 번 가야 할 길도 닦아야 가는 생명의 길이다.

6. 눈이 2m나 쌓였으면 그것을 치우면서 가야 갈 수 있듯이, 자기가 가야 될 영생길도 인생길도 자신이 행해야 될 일을 행해야 갈 수 있다.

7. 의를 행하지 않고서는 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8. 온전한 영생길로 가는 '행실의 의'는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로서, 곧 구원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법을 지키는 일이다.

9. 인간의 책임 없이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이 다 해 주신다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

1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행실을 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11. 주님이 주신 구원길로 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12. '구원'은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행위와 구원받을 자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13.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가 예전보다 차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자다.

<2011년 9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4. 일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쉽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극히 어렵다.

15. 구원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면 쉽지만, '행함'으로 이루기 때문에 어렵다.

16. 믿음으로 마음으로만 큰 산을 넘어가는 것은 쉽지만, 실제 행함으로 큰 산을 넘어가는 것은 어렵다. 구원도 이와 같다.

17. 믿음으로는 낮은 구원에 이르고, 행함으로는 높은 구원에 이른다.

18. 주를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 구원'이요, 주를 행동으로 믿으면 실제로 행했으니 '실체 구원'이다.

19. 실체 구원을 얻어야 실체 세계를 이룰 수 있다.

20.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은 자는 마치 일을 하겠다고 약속만 한 자다. 예수님을 행함으로 믿은 자는 믿고 행하여 대가를 얻은 자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일하는 장소까지 가서 함께 이르는 자로서 대가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말로만 믿고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는 대가를 받지 못한 자의 위치에서 끝난다.

21. 수고의 대가, 행위의 대가다.

22. 구원도 각자 행위의 대가다.

23. 구원은 주님 안의 행위의 대가다.

24. '무엇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다.

25.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것에 대한 행위를 해야 한다.

26. 마음으로만 얻은 것은 희망의 기쁨에 불과하다.

27.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고,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 이 두 가지는 겉과 속이다.

28. '마음'과 '몸'은 쪼개면 두 개이지만, 한 몸이다. 믿음과 행함이다.

29. 믿기만 한 자는 마음에만 얻게 되고, 행한 자는 실제로 얻게 된다.

30. 몸이 행해야 실제 몸으로 얻는다.

31. 하늘나라 천국도 몸으로 행한 자가 간다. 마음으로만 행한 자는 세상에서 살 때 마음 천국만 누릴 뿐, 실제로 영은 천국에 못 간다.

32. 주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실제로 만민을 위해 대신 죽어 주셨고, 실제로 구원길을 만들어 주셨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을 외치셨다.

33. 흔히 자기 육신이 행해서 본 것은 실제 영계를 본 것이고, 마음으로 믿고 본 것은 가상 영계를 본 것이다.

34. 불교나 우상 종교들은 마음의 종교이며, 기독교는 행실의 종교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마음의 종교와 같이 마음만 기쁘게 살다가 끝난다.

<2011년 9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35. '마음'은 하나의 계획이고, '몸의 행위'는 실제로 하나하나 행하여 실체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36. 행한 자에게는 행한 것이 실제로 있고,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말은 있으나 실제로는 없다.

37. 행한 것만 실제로 얻는다.

38. 행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은 마음으로만 얻고 즐길 뿐이다.

39. 사망에 있는 영혼이 사망에서 나오려면, 그 육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한다.

40. 구시대에서 희망하고 생각했던 것은 새 시대에서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41. 꿈에서 희망했던 것은 꿈에서 실제로 안 이루어진다. 잠에서 깨서 낮에 그것을 행해야 실제 이루어진다.

42. 어제는 마음으로 생각한 희망의 날이요, 오늘은 행하여 실제로 얻는 날이다.

43.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망했던 일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 이루셨다. 또한 신약에서 희망하고 약속한 일들은 성약에서 예수님이 또 육신을 통해 실제로 이루신다.

44. 먼저는 실체가 아니요 마음의 믿음이요, 그다음에 실체 몸이다.

45. 먼저는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그다음에 이어서 행하는 실체다.

46.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계획하고 실상을 얻게 하는 '문'이다.

47. 믿는 것은 순간이지만, 행하는 것은 행할 때까지 긴 시간이다.

48. 빨리 행하는 자는 빨리 얻고, 늦게 행하는 자는 늦게 얻는다.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49. 행하지 않는 어부는 송사리도 못 잡는다.

50. 사냥을 행하지 않는 호랑이는 토끼도 못 잡는다.

51. 영웅 열사도 행하지 않으면 한 병사가 행한 것만큼도 남기는 것이 없다.

52. 행한 것은 시대와 군중이 쓰고 먹지만, 행하지 않은 것은 자기 하나도 쓰고 먹을 것이 없다. (월명동과 시대 말씀 : 행했기에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어 시대와 군중이 쓰고, 행했기에 주님께 시대 말씀을 받아 시대와 군중이 먹고 산다.)

53. 말만 하는 자는 사명도 주지 말고 시키지 말아라.

54. 행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많은 사람은 행하는 그 시대의 한 사람만도 못하다.

55. 주님은 행하는 자와 그 시대 역사를 펴신다.

56. 주님은 영체로서 욕이 없으시니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욕이 절대 필요하시다. 고로 행하는 자를 자신의 욕으로 쓰신다.

57. 새 시대 것을 행해야 과거 구시대에서 나오게 된다.

58. 우리 몸의 각 지체도 그 지체에 필요한 것을 행해 주지 않으면 그 지체가 기능을 잃는다.

59. 자체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면 기능이 고장 난 것이다.

60. 사람도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장 난 것이다.

61. 고장 난 것을 고치기 전까지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한다. 행해야 고쳐진다.

<2011년 9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62.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만 한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여라. 그러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

63. 행해야 행함으로 깨달아진다.

64. 주님은 우리가 행동한 만큼만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65. 높은 산에 오른 만큼만 산 밑에 있는 것들이 보이듯이, 주님 앞에 실천한 만큼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실제로 얻게 하신다.

66. 세상에서도 자기 행위만큼 얻는다. 주님께도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더 얻은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 주님은 영생으로 영원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육신 세계는 먹고 마시고 쓰면 만족한 것이다.

67. 먹을 것이 산(山)만큼 있어도 자기 분량밖에 못 먹는다.

68. 무리하게 많이 행할 것도 없다.

69. 자기가 행할 일을 행한 자가 많이 행한 것이다.

70. 천국은 주의 뜻과 자기 행할 것을 행한 자가 간다. 지옥은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한 자가 간다.

71. 끝이 나게 행해야 그것을 다 행한 것이다.

72. <시> 이곳은 나에게 수감소가 아니다 내 육과 마음을 수련하는 수련소다 내 육과 마음을 갈고 닦아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여 이루는 곳이다

<2011년 10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73. 행한 대로 받는다. 공의와 사랑이다.

74.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신다.
75. 불법을 행하며 불의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그 행한 것보다 더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76. 의를 행한 자에게는 그 행한 것보다도 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77.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의다.
78. 주님의 뜻을 떠난 착한 일은 그 행위로 세상에서만 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에는 해당이 안 된다.
79. 어떤 자가 우상을 섬기면서 착한 일을 행하라 하여 우상의 법을 따라 착한 일을 행했다면 우상이 주는 선의의 대가를 받을 뿐이지,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고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
80. 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선을 행했어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81. 인간이 삶 속에 행하는 선과 하나님이 정한 선은 다르다.
82.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다.
83. 하나님의 선의 행함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인간 자체는 언제나 한쪽 유전자 같은 역할밖에 못 한다. 고로 구원의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한다.
84. 하나님을 통한 선만이 상대적인 선이 되어 상대성 생명체로 일체 되어 생명의 구원, 곧 영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85.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선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본으로 창조하신 선이다. 하나님과 일체 된 선, 그리스도 예수님과 일체 된 선만이 영생의 선이 된다.

<2011년 10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나의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다.
2. 주님은 주님 한 분을 놓고도 수백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신다. 어느 때는 반석, 어느 때는 생명나무, 어느 때는 포도나무, 어느 때는 신랑, 어느 때는 어린 양, 어느 때는 참목자, 어느 때는 주인, 어느 때는 빛, 어느 때는 임금의 아들, 어느 때는 심판주 등으로 비유하여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다. 왜 이같이 말씀하셨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주님께 대하여 많이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입장과 처지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10월 2일 주일말씀에 나온 설교와 도표) <참 고> 주일말씀 p.4 * 나 예수 하나를 놓고 성경은 수백 가지 비유로 말했다. <영상1> 어느 때는 반석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후아담으로서 생명나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참포도나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어린 양 같다고 말했고, 어느 때는 참목자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세상을 비추는 참빛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주인이라고 말했다. 어느 때는 임금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심판주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생명길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나 예수가 곧 천국이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너희 형제, 혹은 친구라고 말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나 예수의 입장과 처지가 그때그때 그러함을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직도 수백 가지가 더 남았다. 너희는 나 예수의 말귀를 알아듣느냐. 내 말귀를 알아듣는 자는 많이 배우게 되고 나 예수에 대해 많이 알게 된다. (아멘)
3. 주님은 여러 가지로 그 입장과 처지를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귀를 알아들어야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주님께 대해 많이 알 수 있다.
4. 주님은 한 사람을 놓고도 사람마다 그때그때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그같이 말씀하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5. 주님은 한 사명자를 놓고도 그때그때 사람의 처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중심자, 선지자, 주님의 육신, 표상자, 기준자, 시대 신부, 두 증인, 의인, 모세 같은 자, 여호수아 같은 자, 야곱 같은 자, 요셉 같은 자, 다윗 같은 자, 기드온 같은 자, 베드로 같은 자, 사도 바울 같은 자,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 등 수십 가지로 말씀하신다. 이는 사명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입장을 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10월 2일 주일말씀에 나온 설교와 도표) <참 고> 주일말씀 p.5 * 나 예수는 한 사람을 두고도 여러 가지로 말한다. <영상2> “그는 시대 중심자다. 선지자다. 나의 몸이다. 표상자다. 기준이다. 나의 두 증인이다. 의인이다. 이 시대 모세 같은 자다. 여호수아 같은 자다. 엘리야 같은 자다. 노아 같은 자다. 요셉 같은 자다. 야곱 같은 자다. 기드온 같은 자다. 다윗 같은 자다. 솔로몬 같은 자다. 왕 같은 자다. 나 예수 앞에 세례 요한 같은 자다. 이 시대 나의 신부로 택한 자다. 이 시대 죄 때문에 시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자다. 시대 생명의 길이다. 내가 말한 성경말씀의 예언을 땅에서 이루는 자다. 땅에서 내가 준 시대 새 역사 말씀의 나팔을 부는 자다. 이 시대 사랑의 조건을 세운 표상자다. 신부의 처음 열매다. 아담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룬 자다. 성령의 표상이다.”라고 말한다. 이같이 한 사람을 놓고, 그가 나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처지와 입장을 볼 때 그때그때 그러하다는 것이다. 나의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나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된다. (아멘.)

6. 주님은 각 사람을 그 꿈에나 영계에서 보일 때도 여러 가지로 보여 깨닫게 하신다. 그때마다 처지와 입장을 비유하여 가상적으로 보여 깨닫게 하신다. 그에 해당되는 입장과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여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7. 주님은 ‘말씀’ 한 가지를 놓고도 불이라고 말했고, 전쟁의 각종 무기라고 말했고, 검이라고 말했고, 양식이라고 말했고, 꿀이라고 말했고, 물이라고 말했고, 열쇠라고 말했고, 철장이라고 말했고, 인이라고 말했고, 나팔이라고 말했고, 피리라고 말했고, 혀라고 말했고, 채찍이라고 말했고, 입의 막대기라고 말했고, 밤의 등불이라고 말했고, 빛이라고 말했고, 가뭄의 소낙비라고 말했고, 황금이나 각종 보석이라고 말했다. 또 말씀을 신이라고 말했고, 생명이라고 말했다. ‘말씀’이 주님 앞이나 사람들에게 그같이 쓰여진다 함이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많이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다.

8.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야곱 노정을 간다고 못을 박고 야곱을 연구하며 간다. 그때 한때 그 같은 입장의 상황일 때가 있다. 그때 그 같은 입장과 처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아예 자기가 야곱이라는 것을 못을 박고 한 가지 말귀만 알아듣고 간다. 주님의 뜻을 많이 모르는 자다. 주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깨달은 자다. 그러니 잘못 생각하고 탄 길로 가서 고생하고 크게 쓰일 자가 작게 쓰여지게 된다.

9. 주님은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행할 때 그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여러 가지로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10. 주님은 상황에 따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보이신다.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11. 사람들은 주님이 그때 그 상황과 처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거나 보여 주시면 평생 그것으로 좁게 생각하고 산다. 주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12. 사람이 한 사람을 놓고도 게으를 때는 거북이라고 하고, 부지런하면 치타라고 한다.

13. 같은 주님의 사역을 해도 때에 따라 그 사람이 야곱과 같이 쓰여질 때 야곱 같은 입장이라 하고, 그 단계를 벗어나서 엘리야같이 쓰여질 때는 엘리야 같은 입장이라 하고, 또 그 단계를 벗어나 여호수아같이 쓰여지며 사역을 할 때는 여호수아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말귀를 한 가지만 알아듣고 자기는 야곱 사명이라 하며 그것을 못 벗어나고 산다.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는 자가 많이 배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많이 행하게 된다.

14. 시대의 중심적인 사명을 가진 자라도 그 중심을 중심해서 역사를 펴면서, 그때그때 뜻을 펴는 처지에 따라 어느 때는 종교 개혁자, 어느 때는 여호수아, 어느 때는 다윗 같은 입장임을 깨닫게 해 주어 행하게 한다. 어느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 행하게 하고, 어느 때는 바울 같은 입장에서 행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감동시켜 행하게 하신다.

15. 주님은 그 시대 사명을 하는 자들을 통해 그때그때 해당되는 역사를 펴실 때 “이때 너는 여호수아같이 해야 된다. 이때는 성령님같이 엄마 입장에서 해야 된다. 이때는 엘리야같이 그 사명과 심정을 가지고 그 처지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하신다.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많이 배우고, 그때그때 주님의 심정 맞춰 주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주님과 소통이 된다.

16. 사람도 따라가는 지도자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지도자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원하는 대로 쓰이지 못한다.

<2011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주 편) 나의 말귀를 알아들을수록 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다. * 주님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주님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원하는 대로 쓰이지 못한다. * 사람도 따라가는 지도자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지도자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원하는 대로 쓰이지 못한다.

17. 주님이 서쪽으로 가던 자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평생 동쪽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다. 10m 가서 또 물어보고, 100m 가서 또 물어보면 “이제는 남쪽으로 가라.” 하신다. 이와 같이 주님이 어느 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도 평생 그쪽으로만 가야 될 길이 있고, 하루만 그쪽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한 시간만 그쪽으로 가야 될 길이 있다. 어느 때는 전도, 어느 때는 관리, 어느 때는 교육이다.

18. 주님은 때를 따라 말씀하시니 왜 전에는 저렇게 하라고 하시고, 왜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이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19. 한 그루의 나무도 어느 때는 아기 같다, 어느 때는 청년 같다, 어느 때는 어른 같다고 하며 성장함에 따라 달리 말한다.

20. 그때 그 입장과 처지를 보고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21.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를 두고도 처음에는 인기척도 없는 잡초 골짜기라 했고, 그다음에는 인기척이 끊이지 않는 골짜기라고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대자연 성전라고 한다. 현실에서 변화하는 대로 그 처지와 입장을 보고 말하는 것이다.

22. 설교 말귀, 계시 말귀, 중심 지도자의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다른 주관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며 살게 된다.

23.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꼭 확인하고 물어봐야 된다.

24.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각각 다르게 생각하며 이념과 사상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고 깨닫고 행하기 때문이다.

25. 주님은 ‘영’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육’을 두고 말한 것으로 알고 “육신이 살아났다, 육신이 하늘나라에 간다. 육신이 휴거된다.” 한다.

26.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육과 영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휴거를 이루고, 주님을 만난다.

27. 주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주님의 몸이 되어 시대에 귀히 쓰임을 받는다.

<2011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근본’이 있다. 주님은 크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눠서 말씀하셨다.

2. 육적인 것이란 육을 중심한 육의 세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인 것이란 영을 중심한 영의 세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육과 영을 쪼개서 보되, 육과 영을 겹쳐 보고 일체 시켜 알아들어야 된다.
3. 성경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했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영도 오시고, 땅에서 그 발판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고 그 뜻을 행할 육신도 온다는 말이다.
4.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체도 오시고, 땅에서 예수님의 육으로 쓰이는 육을 가진 땅의 사명자도 온다는 말이다. 이것이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다.
5.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것만 알아듣고 증거한다. 어떤 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고 알아듣고 증거하며 기다린다. 어떤 자는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은 모르고 시대에 어떤 사명자가 온다는 것만 알아듣는다.
6.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영의 몸도 오시고, 땅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시대 사명을 할 자도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대 말씀을 전해 주며 이끈다는 말이다.
7.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는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사람같이 올 줄 몰라서 죽인 것이다.
8.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고난의 주로 온다는 예언도 있고, 영광의 주로 와서 왕 노릇 한다는 예언도 있다. 메시아가 고난의 주가 됨은 땅에서 메시아를 맞는 인간들이 책임을 못 하여 죽였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정이 아니다. 메시아를 맞는 인간들이 몰라서 책임을 못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인간이 책임을 못 함으로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구원 길을 주셨다.
10.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구약 선지자 때도 사람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갇은 악평으로 억울하게 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의를 행한 것같이 했다. 고로 전체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 보낸 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민족의 죄를 세탁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를 믿고 따르면 민족이 그 시대 형벌을 받지 않고 대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11.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뜻을 알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평생 모른다.
12. 하나님도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그 시대 뜻을 펴시며, 뜻있는 자를 그곳에 불러 역사하신다.

<2011년 10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모른다. 하고 난 후에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이는 행한 후에야 확인되기 때문이다.
2.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좋은지, 안 믿고 사는 것이 좋은지 살 때는 모른다. 후에는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후에는 확인되기 때문이다.
3.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지, 안 뿌리는 것이 좋은지 그때는 모른다. 가을이 되면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그때는 확인되기 때문이다.

4. 행할 때는 좋은지 나쁜지 모른다. 후에 가서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그때 확인되기 때문이다.
5. 행할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려면 오직 주님이 시키신 일만 하여라. 주님이 시키신 일은 후에 좋게 거둔다.
6. 사랑하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지 나쁜지 결과를 모르고 행한다. 그러다 결과에 도달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판단되어 그제야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7. 자기가 어떤 것을 행할 때는 좋아서 행한다. 그때는 좋았어도 후에 가서 열매를 열어야 좋은지 나쁜지 확실히 알게 된다. 고로 그제야 후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한다.
8.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모르고 씨를 뿌린 자는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보고 아니, 그제야 좋고 나쁜 것을 알게 되어 웃고 운다.
9. 세상에서 자기 삶이 좋은 길을 가는지, 나쁜 길을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인생의 종점에 가서야 알고 좋아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죽은 후에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인생을 다 살아 놓고 나서 그제야 좋아하거나 슬퍼한다. 고로 옳은 생명길을 미리 알고 믿고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하냐.

<2011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시간'이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저마다 어떻게 그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자기가 어떤 축복을 받느냐가 좌우된다.
2. 누구의 정신과 누구의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화복이 좌우된다.
3. 인간은 정신, 마음, 생각이 핵이다. 사탄도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혼돈시키고, 소란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괴롭게 한다. 사람은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한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고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신령함을 주신다. 사람은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따라 행한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축복하신다.
4. 양들이 이리, 늑대, 사자, 각종 야수들이 잡아먹는다고 괴로워하며 공포에 떨어도 참양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야수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야수가 되면 자기 족속인 양들을 잡아먹는 야수가 되어 살기 때문이다. 야수가 되면 야수한테는 잡아먹히지 않지만, 양들의 목자에게 잡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온전한 의인들도 그러하다.
5. 토끼에게 사슴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아마 선뜻 사슴이 되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많이 해 보고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각각의 삶은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며, 사슴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도 그러하다. 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천국의 삶을 사는 자만이 최고의 삶을 사는 자로서 모두 그 사람같이 되겠다고 할 것이다.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가장 크다.
6. 지구상의 인간이 지은 죄는 너무 많아서 죄의 쓰레기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다. 오직 각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마치 햇볕에 물이 증발되어 없어지듯이, 하나님께 용서받아 죄가 없어진다.
7. 어떤 일에 있어서 보통으로 아는 것은 쉬운데, 세밀하게 근본을 아는 것은 어렵다.
8. 세상의 것을 아는 것은 보다 쉽지만, 영의 세계에서 주님이 은밀히 보이시는 것들은 알기가 제일 어렵다. 그것을 보여 주신 주님이 은밀히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

<2011년 10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다.
2. 잠을 많이 자면 꿈이 많이 꾀진다. 육적 활동을 못 하니 혼적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3. 관리를 안 하면 자기 식이 되어 버린다.
4.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죄인지 모르고 산다.
5.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법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안 믿고 사는 자들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법이 해당된다.
6. 자신이 몰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선악 간에 축복과 심판으로 갚아 주신다.
7.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가 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고 산다.
8.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든지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9.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배치해 놓고 보고받으시고, 그에 해당되는 대로 대하여 행하신다.
10.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모르는 대로 그냥 살면 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11. 자기 몸과 지체에 대해서도 알려고 해야 알게 되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일생을 살아도 모른다. 세상만사도 그러하고, 미래 영의 세상도 그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것도 그러하다.
12. 인간이 자기가 모르고 살아도 될 것은 모르고 살아도 별 해도 없고 별 유익도 없지만, 꼭 알고 살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을 제대로 못 살게 되고 영원한 것을 뺏기게 되기도 한다.
13. 알고 보면 매일 배우고 매일 실천할 것이 너무 많다.
14. 인생은 먹는 것만 좋고, 입는 것만 좋고, 잠을 자는 것만 좋고, 남녀 간에 사랑하며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에서부터 수천 가지다. 모르면 땅의 것만 조금 누리고 살다가 죽는다.
15. 세상도 많이 알고 살면 많이 누린다. 이와 같이 하늘에 관한 것도 많이 알면 많이 누리게 된다.
16. 많이 아는 자에게 많이 배우고, 많이 행하는 자를 보고 그와 같이 행하여라.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을 맞아야 된다. 땅에서 주님을 맞으라고 외치는 시대 땅의 중심자를 맞지 않고서는 주님을 제대로 맞지 못한다. 자기 육신이 제대로 준비하여 주님을 못 맞으면, 그 영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맞는다. 이와 같이 육신이 주님의 육으로 온 땅의 사명자를 제대로 못 맞으면, 그 영이 주님을 제대로 못 맞게 된다.
2.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했다. 먼저 육이 주님께서 육으로 쓰는 자를 맞아야 된다. 이에 따라 영이 변화되면 그 영도 변화되어 주님의 영을 맞게 된다.
3.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들은 종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육의 사람 모세를 보내셨다.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맞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맞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행할 일을 하셨다. 고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맞지 못하고 원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따르지 못하게 되었다.

4.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믿고 따른 자들만이 이집트에서 벗어났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육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육신으로 보낸 땅의 사명자를 제대로 맞아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심을 알고 따르게 되어, 육도 영도 변화되고 부활되어 그 차원의 구원을 받게 된다.

5.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대하지 않았고,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모세 스스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 고로 모세를 악평하고 원망했다. 하나님을 악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모세의 육을 통해 나타나신 것을 모르고 악평하고 원망했으니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어 근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시대도 영과 육이 그러하다.

6. 주님은 이 시대 육신을 가진 사명자를 통해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7.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하려 하던 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믿음으로 구시대 신앙을 면치 못했다.

8.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고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다 듣고 따를 수 있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구시대를 못 벗어났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맞는 것이 하나님을 맞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9. 절대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맞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하며 그를 통해 주님을 알고 믿고 행하며 따라야 된다.

10. 주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

11. 알지 못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딴 방향에서 일하여 그 수고대로 유익이 없이 살면서 해를 당한다.

12. 줄을 잘못 서면 식당에 가는 자가 화장실에 가는 줄에 서서 기다린다.

13. 어떤 자는 인생의 줄을 확인하지도 않고 서서 고생하는 삶을 산다. 어떤 자는 모르고 사망 음부로 가는 길에 서서 앞의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14. 어떤 자는 생명으로 가는 줄을 서서 가다가도 제대로 모르고 가니 다시 돌아 나와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하며 사망 음부 지옥 길에 서서 사망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 보기에는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줄 모르고 가는 것이다.

<2011년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확실히 증거한다. 고로 그와 일체 되어 산다.

16.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자기를 증거하거나 세상을 증거하고 말한다.

17. 보낸 자는 보냄을 받은 자에게 날마다 증거하고 전할 말을 주어 날마다 새롭게 증거하게 한다.

18. 보냄을 받지 않은 자는 그 보낸 자를 알 수가 없다.

19. 하나님과 예수님이 핵심으로 보내시는 보다 육적인 자와 보다 영적인 자, 이 두 사람을 두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러나 핵심은 영적인 시대 중심자 한 사람이며, 그는 영적 육적 중심자다.

20. 항상 육적으로 증거하고 영적으로 증거한다.

21. 어느 시대든지 중심 증인은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육적인 자로서 보낸 자의 육적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자로서 보낸 자의 영적인 것을 증거하게 한다.

22. 증거자는 보낸 자의 뜨거운 심정을 받고 심정으로 증거해야 된다.

23. 육적인 증거자는 육적인 혈통에서 난 자를 뽑아 보낸 자의 육적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영적인 증거자는 영적인 혈통에서 난 자를 뽑아 그에게 사명을 주어 영적인 것을 증거하게 한다.

24. 예수님 때 예수님의 육적인 증거자는 육적인 혈통인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의 영적인 증거자는 영적 신앙의 혈통인 베드로였다.

25. 확대해서 보면 보다 육적인 사람과 보다 영적인 사람이 두 증인이 되어 주님과 시대에 보낸 자를 증거하며 복음을 퍼 나간다.

26. 중심으로 세운 두 증인을 통해 배워서 그와 같이 자기도 주님과 시대 보낸 자의 사명과 행함을 육적 외적으로 증거하고, 영적 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27. 주 앞에 증거자가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할수록 주님은 더욱 확실하게 역사하신다. 증인들은 실제로 보았기에 확실히 증거한다.

28. 주님을 증거하는 만큼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복음으로 시대를 잡고 나아가게 된다.

29. 증거가 약하면 따르는 자들이 판단을 못 하고 복음 역사에 제대로 오지 못한다.

30. 증거하는 것에 따라 보낸 자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 역사함도 좌우된다.

31. 증거하려면 스스로 연구도 하고, 보낸 자에게 많이 배워 많이 알아야 된다.

32. 증거자가 증거를 약하게 하면 보낸 자가 역사하지 못한다.

33. 늘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증거할 것을 받아 깨달고 배워야 된다.

34. 자기가 중심자의 증거자인데 그것을 모른다. 얼마나 답답하냐.

35. 증거자는 증거가 사명이다. 권세다. 위력이다. 능력이다. 그로 인하여 빛이 나게 된다. 그것을 해야 주님과 보낸 자가 역사한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불붙지 않는다.

36. 증거자가 잘못 증거하면 보낸 자는 잘못된다.

37. 증거는 시대 중심 사명자가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중심하여 육적인 증거 사명자는 육적으로 증거하고, 영적인 증거 사명자는 영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38. 증거자는 시대 말씀을 중심하여 육적 증거 사명자는 육적인 것을 전하며 영적 증거 사명자는 영적인 것을 전하면서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사명을 받고 온 주님의 육신 된 자가 주님을 더욱 빛나게 증거하게 된다.

<2011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39.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아’였다. 모세는 외적 육적 증거자요, 엘리아는 내적 영적 증거자였다.
40. <엘리아 당세 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엘리아’와 ‘엘리사’였다.
41.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복귀 노정 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모세’와 ‘여호수아’였다.
42.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었다.
43. <모세 당세 때> 중심자인 모세를 증거하고 받쳐 주는 데 두 증인은 ‘아론’과 ‘홀’이었다.
44.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하며 시대를 이끌어 나갔다. 여호수아는 외적 증거자요, 갈렙은 내적 증거자였다.
45. <말씀>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이었다. 구약 말씀은 외적 증거요, 신약 말씀은 내적 증거였다.
46. <재림시대 말씀>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신약 말씀’과 ‘성약 말씀’이다. 신약 말씀은 외적 증거요, 성약 말씀은 내적 증거다.
47. <주님의 재림 시대>의 두 증인은 ‘전 역사 중심자’와 ‘후 역사 중심자’다. 전 역사 중심자는 외적 육적인 증인이요, 후 역사 중심자는 내적 영적인 증인이다.
48.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두 증인은 ‘루터’와 ‘칼뱅’이었다.
49. <사사 시대> 대표적인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삼손’과 ‘기드온’이었다.
50. <예수님 당세 때> 예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세례 요한’과 ‘베드로’였다.
51. <통일 왕국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었다.
52. 목회자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보다 육적 세계를 증거해 주는 자와 보다 영적 세계를 증거해 주는 자다.
53.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육’과 ‘영’이다.
54.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자녀의 두 감람나무는 ‘남자’와 ‘여자’다. 남자는 외적 증거자요, 여자는 내적 증거자다.
55.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형제’와 ‘신부’다.
56.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해 공부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
57. 배우기만 하면 아는 무식자다.
58.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시대를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듯 달려가며 행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59.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자와 그 차원이 동일하다.

60. 증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증거받는 자는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

61. 증인의 증거가 불충분하면 증거를 받은 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혀 있게 된다. 고로 자기가 증거할 자의 사명을 알고, 주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 것을 알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자유로운 몸이 된다.

62. 섭리역사 30년 동안 주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행하신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증거해야 대역사가 일어난다.

63. 생명의 대역사는 증거하는 데서 일어난다. 증거해야 생명들이 주님이 보내신 중심자를 따르고, 그를 통해 제대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 생명이 먼저 중심자와 접붙여져야 중심자를 보내신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이 빛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부흥 역사가 일어난다.

64. 주님이 보내신 중심자를 증거해야 예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지 알게 된다.

65.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왜 알고 겪었으면서, 육과 영이 사망권에서 나왔으면서 증거하지 못하느냐.

66. 못 본 것은 증거할 수 없고, 겪지 않은 것은 확실히 증거할 수 없다. 고로 보고 듣고 겪은 자가 증거해야 한다. 보고 듣고 겪은 자가 그만큼 증거하지 않으면 죄가 되어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중심자에게 죄가 된다.

67. 본 자, 들은 자, 겪은 자의 사명은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전체에 증거해야 된다.

68. 많이 보고도 조금 증거하고, 또 증거해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증거하면 힘이 없다. 기도하고 심정 받아 보고 겪은 것을 전체에게 불같이 증거해야 된다

69. 주를 제대로 증거하고, 그가 보내신 자를 제대로 증거하는 자는 시대에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다.

70. 알아야 증거한다.

71.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증거하니 그 말이 불과 같고 힘이 있다. 고로 그 말이 믿어져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된다.

72. 성경을 읽고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주님께 많이 배운 자가 예수님과 성경 역사에 대해 많이 증거하고 외쳐 시대의 중심적인 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

73.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수를 멸하는 능력을 주시어 그 입에서 불이 나가 원수를 사르게 한다고 하셨다. 여기서 불은 ‘말씀의 불’로서 ‘말씀의 권세’를 말한다.

74. 증거자는 이같이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있다.

75. 증거자를 증거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역시 그 같은 능력을 주시어 그 입에서 말씀의 불이 나가 원수를 멸하기도 한다.

76. 주님의 육으로 쓰이는 자가 주님의 행하심을 그때그때 자세히 증거하듯이, 따르는 자들도 주님의 육으로 쓰이는 자를 그때그때 증거해야 된다.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77. 증거가 불충분하면 사탄에게 지고, 의인이 악인에게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

78.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것이 의인이 사탄에게 지는 것과 악인에게 지는 것이다.
79. 하나님은 의인을 억울하게 한 사탄과 악인에게 영원한 형벌을 선고하여 계획적으로 고통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의인을 억울하게 했으니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사탄과 악인에게 진 자도 형벌을 받게 된다.
80. 사탄, 악인, 불신자, 행악자, 배반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로 사탄과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
81. 증거는 사탄과 악인과 행악자와 배반자와 꾀박자를 이기는 대무기다.
82. 증거를 들으면 악인과 사탄을 따르던 자가 사도 바울같이 돌아와 주님의 대역사를 증거하며 사탄을 이기게 된다.
83. 증거해야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차원 높은 세계에도 오르게 해 주신다.
84.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신 자를 증거하여라. 하나님과 주님이 그 육신을 쓰시고 행하심을 증거해 줘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된다.
85. 증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은 증거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86.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해 주지 않았다.
87. 증거자가 죽으면 증거받는 자도 죽게 된다. 목숨 걸고 증거해야 자기도 살고, 시대도 살고, 증거받는 자도 살게 된다.
88. 주님은 육신이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9. 증거자는 그 육도 영도 온전한 신부로 예비되어 땅에서 육적으로도 주님을 맞고, 하늘에서 영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된다.
90. 주님은 증거자에게 꿈으로, 혹은 계시로, 혹은 말씀으로 증거할 것을 주신다. 그것을 섭리 온 세계에 전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시대 복음을 전해야 된다.
91.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입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니 주님의 계시를 글로 써서 보내 주면서 주님을 증거했다. 이 시대 주님의 육이 되어 쓰이는 사명자도 그러하다.
92. 증거자는 주님이 시대 보낸 사명자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
93. 증거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
94. 증거자는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
95. 예수님은 내가 본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보고 들었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다. (요 3: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요 8: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96. 주님께서 그 날에 증거자를 통해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 다 말을 하며 증거해야 된다.

97.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자와 증인들을 통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은 것이 밝히 알려지게 된다.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98. 본 자들이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며 증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보고 들은 자가 증거하지 않으면 큰 죄가 된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99.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다.

100.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하게 막고,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주고, 사탄 주관권의 악인들을 통해 악평하여 사람들이 주님과 보낸 자를 증거하는 말을 불신하게 한다.

101.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증거한 생명의 말씀이다. 보고 깨닫고 증거하여라.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02. 증거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서로 싸운다. 빛은 옳은 것을 무기로 삼고 싸우고, 어둠은 그른 것을 무기로 삼고 싸운다.

103. 참된 증거를 받아 주지 않는 재판관은 온 인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그로 인하여 불의한 재판관과 불의한 그 시대는 무고한 자가 받은 고통을 다 받게 된다.

104. 옳은 증인이 옳은 증거를 한다. 주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주님의 행하심을 증거하여 말해 주는데도 안 믿고 안 받아 주는 자는 옳은 말을 하며 증언하는 증거를 안 받아 주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 고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형벌하시며, 구원 세계에 들어오는 것을 엄히 금하신다.

105.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 주님이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도 못 들어오게 된다.

106.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더욱 빛난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이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그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여 모두 듣고 따르게 하여라.

107.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두 가지로 상대성을 두고 창조하시어 서로 주고받으며 상호 존재하게 하셨다.

108. 대뇌와 소뇌는 생각과 정신의 두 감람나무다. 대뇌는 육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작용하고, 소뇌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작용한다. 이 둘이 일체 되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야 정확하다.

109.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은 보는 데 두 증인이다. 한쪽 눈은 전체를 보고, 다른 한쪽 눈은 초점을 맞춰 핵을 본다. 둘이 일체 되어 봐야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육적 증거 말씀과 영적 증거 말씀을 모두 다 들어야 정확하고 확실하다.

110. 오른쪽 귀와 왼쪽 귀는 듣는 데 두 증인이다. 한쪽 귀로 들으면 작게 들리고 확실하게 들리지 않는다. 양쪽 귀로 들어야 정확하고 확실하게 들린다. 이와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도 땅에 속한 육적인 말씀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말씀 두 가지로 말했으니, 두 가지로 깨닫고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 주님의 재림도 먼저는 육의 사람을 통해 육이 땅에서 휴거되는 육적 휴거와 그다음에 신령한 영이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영적 휴거로 쪼개서 보고, 재림역사를 두 가지로 행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야 된다. 먼저는 주님이 땅에서 사명자의 육신을 쓰시고 우리 육신을 데리고 재림역사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주님이 영의 몸으로 재림하시어 육신의 행위를 따라 변화된 영들을 하늘나라로 휴거시켜 재림역사를 하신다. 확실히 전해야 듣는 자가 확실히 듣고 믿고 따른다.

111. 성경은 항상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말씀했다.

112. 영적인 자는 영적으로만 전하고, 육적인 자는 육적으로만 전하니 듣는 자가 말씀을 들어도 모순이 있어 제대로 안 믿게 된 것이다.

113. 사람을 논할 때 어떤 자는 여자만 논하고, 어떤 자는 남자만 논하니 헛갈리고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114.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을 쪼개서 말하듯이, 성경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쪼개서 두 가지를 증거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며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의 불이 붙어 생명의 역사, 참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115.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영의 세상이나 모두 짝을 두고 창조하여 서로 상호 존재하게 하셨다. 고로 천하에 그 짝이 없는 존재물이 없다. 변성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 상대와 수수 작용을 하면서 일체 되어 존재하게 하기 위함이다.

116. 영체와 육체,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 주체와 대상, 마이너스와 플러스, 입자성과 파동성, 당기는 것과 미는 것 (만유인력), 땅과 하늘, 유형세계와 무형세계 등 다 짝이 있다. 수십억 종의 존재 만물들도 그러하고 인간을 중심한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117. 하나님과 성령님, 남자 천사와 여자 천사, 이렇게 모두 상대적 존재이며 동시에 개성체로 존재한다.

118.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모든 것이 짝이 되어 존재하게 이를 명하여 창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

119. 인간의 지체도 모두 두 가지로 짝을 지어 상호 존재하며, 각기 다른 기능을 하게 창조되었다.

120. 대뇌와 소뇌, 동맥과 정맥, 우심실과 좌심실, 우 콩팥과 좌 콩팥, 큰 창자와 작은 창자, 오른손과 왼손, 오른발과 왼발, 오른쪽 눈과 왼쪽 눈, 오른쪽 귀와 왼쪽 귀, 호흡도 들숨과 날숨, 영체와 육체 등 이같이 짝을 지어 창조되었다. 이 둘은 서로 각각의 기능과 사명을 하며 하나의 목적을 두고 존재한다. 이 둘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제 기능과 작용을 할 수 없고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이나, 시대 중심자 앞에 개성대로 영적인 증거 사명과 육적인 증거 사명을 주었지만, 서로 싸우거나 헐뜯거나 다투면 기능을 못 한다. 고로 서로 상대를 증거해 주면서 보낸 자를 증거하고 말씀을 확실히 전해 줘야 된다.

121. 주 앞에 두 증인의 사명자들은 흔히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 되지 않고 일을 한다. 그러면 빛이 안 나고 서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축구장에서 공격진과 수비진이 서로 안 맞고, 우측 풀백과 좌측 풀백이 서로 안 맞고, 우윙과 좌윙이 서로 안 맞아 패스가 잘 안 되어 상대팀에게 공을 뺏겨 공격을 받는 꼴이 된다.

<2011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22. 주 앞에 두 증인과 주님이 보내신 시대 중심자 앞에 두 증인은 상호 존재하며 서로 의논하고 증거해야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청중이 믿고 장마철의 급물살처럼 빨리 움직인다. 따르는 자들은 이 두 증인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온전히 뿌리가 서서 견고한 자가 된다.

123. 사람들이 한 가지 이론만 듣고 믿으니 모순 있는 자가 되어 약한 신앙을 하게 된다.

124.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이 주와 일체 된 온전한 말씀이다.

125. 온전한 양단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틈이 없으니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

126. 육적으로 증거하라는 것은 주님이 육신으로 쓰는 자와 같이 행한 일과 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불같이 외치며,

그 육의 삶에 대해 본 것을 말해 주라는 것이다.

127. 영적으로 증거하라는 말은 보다 내적인 것, 즉 영에 대해 증거하라는 말이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며, 주님이 시대 중심자와 함께 내적, 영적 역사를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128. 자기가 직접 못 본 것은 본 자들의 말을 많이 듣고 말씀의 자료를 받아 그때그때 외치는 것이다.

129. 증거자는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된다. 보낸 자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 주님의 심정과 중심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불을 토하듯 뜨겁게 외치고 전해야 된다.

130. 시대를 따르는 자들은 증인들의 심정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사명대로 영적인 증거 사명이나 육적인 증거 사명 중 하나를 맡아 짊을 지고->지어 혹은 짓고 주님과 중심자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마치 바위를 깨서 자갈을 만드는 제분기같이 새 역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는 대로 그 마음이 녹아지고 고정관념이 깨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131. 강의도 내적 강의와 외적 강의를 쪼개서 해 주면 확실하다.

132. 영적으로 육적으로 쪼개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말씀의 제단에 불이 붙어 강하게 타게 된다.

133. 주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항상 짝이 되어 좌우에 날선 검이 되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그 보낸 자라->자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주님께서 시대에 주님의 육으로 보낸 자를 증거해야 된다.

134. 사탄과 악평자들은 항상 두 증인을 공격하고 막는다. 고로 한 겹 줄은 힘이 없어 끊어지니 두 겹 줄이 되어 행해야 된다. 그물망도 횡과 종으로 되어 있기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잡힌다. 두 증인은 횡적인 사명과 종적인 사명으로 하나 되어 두 겹 줄이 되어 행해야 많은 생명들을 얻게 된다.

135. 섭리를 따르는 자들은 영적인 말씀과 육적인 말씀으로->말씀을 땅으로는 횡적으로, 하늘로는 종적으로 조직하여 말씀을->생략 전하여라. 그러면 그물망과 같아서 고기들을 다 잡을 수 있다. (횡과 종을 구분하여라. 영적인 사명자들과 육적인 사명자들이 그물망처럼 하나 되면 생명을 얻는다. <삽화> 횡과 종으로 된 그물망)

136. 시대마다 확대시킨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하나가 안 되었기에 종교 전쟁과 시대 전쟁이 일어났다. 구약과 신약, 천주교와 개신교, 전자 사명자와 후자 사명자가 완전히 하나 되었다면 그 시대의 생명들이 역사의 그물망에 다 얽혔을 것이다. 하나 되지 않고 각각 하니 항상 곤고하고 어려웠다.

137. 전 역사는 육적 증거의 사명을 가졌기에 육적으로만 가고, 후 역사는 영적 증거 사명을 가졌기에 영적으로만 가니 서로 하나 되지 않는 것이다. 서로 각각 개성체로 존재하며 사명을 하되, 반드시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하나 되어야 뜻을 이룬다. 사람도 육과 영이 한 몸에서 존재하면서 또 각각 존재하며 하나의 목적을 두고 뜻을 펴야 된다. 육의 일은 영이 못 하고, 영의 일은 육이 못 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 한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

138. 주 앞에 두 증인들은 서로 하나 되어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증거하며 한 목적을 향해 주님의 뜻을 펴 나가야 된다.

139. 학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감동시키시어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고로 그들은 두 감람나무가 되어 백성들을 흥분시키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선지가 학개가 하나님의 육신같이 쓰여지며 모든 말을 전해 주었다. (학 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학 1:12)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

를 경외하매』(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40. 항상 육적 사명자와 영적 사명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뤄야 된다.

<2011년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가 있을지라도 금덩어리같이 가만히 있으면서 색깔만 변하지 않으면 보는 자가 희망이 없을 것이다.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날마다 운행하시면서, 날마다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존재하시며 변치 않으신다. 고로 하나님은 희망, 기쁨, 사랑, 흥분의 역사를 일으켜 그 역사하심에 모든 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3. 사람도 신앙이 변치 않을지라도 매일 이상적으로 활동하면서 변치 말아야 자신도, 보는 자들도 희망이며 유익이다.

4. 주 안에서 나쁘게만 변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그 위치에 있지 말고,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면서 주의 뜻 안에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항상 그 위치를 면치 못한다.

5. 주님을 믿는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뜻을 날마다 열렬히 행하면서 변하지 않아야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얻고 빛같이 찬란하게 살게 된다.

6.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영원불변하신 존재자이시면서도 그 할 일을 매일 행하시면서 변치 않으신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도 성령 안에서 매일 신앙생활을 더 이상적으로 하면서 변치 말아야 된다. <해석> 주님은 선생을 보고 말씀하셨다. “신앙과 마음만 변질되지 않는다고 다가 아니다. 더 좋게 변화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 섭리인들은 변질은 잘 안 되는데, 날마다 더 좋게 변화하는 것이 약하다. 그러니 가르쳐 주어라.” 말씀하셨다. 이에 대한 잠언이다.

7. 기계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가동하여 귀히 쓰이면서 고장 나지 말고 변색되지 말아야 한다. 사람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려 하지 말고, 더 차원 높게 행하고 더 좋은 변화를 하면서 신앙과 마음을 굳게 지켜 변하지 말아라.

8. 인생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면서 변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도 더 이상적으로 행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

9. 할 일을 못 하면 자기도 모르게 나쁘게 변하게 된다.

10. 할 일을 해야 좋게 변화된다.

11.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변하지 않고 타락만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은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며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 터전 위에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 좋게 변화되는 삶을 살면서 변하지 말라고 하셨다.

12. 금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금 빛깔만 변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할 수가 없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이면서 그 빛깔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이 필요한 대로 쓰이면서, 더 이상적으로 행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2011년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3. 신앙이 변치 않으려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하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아무 공적도 없고, 그 선에서 변한 것이다.” 하셨다.

14. 가령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사랑도 변하지 않았고 마음도 변하지 않았다 하자. 그러나 발전이 없이 늘 제자리에만 있다 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은 자가 기쁘지 않다. 왜냐하면 발전이 없고 더 좋은 변화가 없으니 싫은 마음이 생긴다.

15. 변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16. 변질되면 사탄이 침범한다. 주님과 사랑이 끊어진다.

17. 사랑이 타락된 자는 일단 주님과 사랑이 끊어져 있다. 근본으로 회개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통을 해야만 살아난다. 살아나야 다시 사랑의 공적을 쌓게 된다.

18.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되 차원을 높이면서 날마다 사랑하여라. 그 차원은 1000차원, 10000차원의 계단이 있다. 매일 한 계단씩 오르면서 사랑하여라.

19. 금덩어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 빛깔만 변하지 않으면 가치를 발하지 못한다. 필요한 대로 귀히 쓰이면서 그 빛깔도 변하지 않아야 가치를 발한다. 이와 같은 신앙을 하여라.

20. 매일 오르던 차원을 못 오르면 나쁘게 변질되는 신앙이다. 매일 한 계단씩 오르는 신앙은 더 좋게 변화되는 신앙이다.

21. 하나님은 인간도 영원불변의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일체, 예수님과 일체, 성령님과 일체의 삶을 사는 자의 영은 영원불변한 존재가 된다.

22.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신앙이 나쁘게 변질된 자와,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면서 신앙이 변하지 않고 끝을 맺은 자 두 편이었다.

23. 성경을 보면 어떤 자는 변질되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또 어떤 자는 회심하고 돌아와서 본래보다 더 열심히 했다. 또 어떤 자는 항상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없이 열심히 했다.

<2011년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24.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점점 더 몰려와서 역사한다. <설명>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내 방에 모기가 없는데, 주님은 모기가 몰려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모기가 상징하는 사탄들이 몰려온다는 보여 주신 것이다.

25. 보기에 달려 있다. 정신이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형체가 뇌에 그려진다. - 선한 자도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보인다는 말이다.

26. 가령 감옥을 자기 공부방으로 생각하고 공부하면, 감옥이 100% 완전히 공부방으로 보이고 그렇게 생각된다.

27. 영계를 깊이 생각하면 영의 세계가 보인다.

28. 가령 절대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100% 자기 상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생각하고 살면 주님이 그같이 보이고 생각되고, 삶을 살 때도 그같이 행해진다.

29.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보는 대로 뇌에 100% 그같이 인식된다.

30. 가령 어떤 자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해 버리면, 지체를 여자로 바꾸지 않아도 자기가 정말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과 행실이 여자로 뒤바뀌게 된다.

31. 어떤 사람이 평소에 상상했던 동물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여러 가지 동물을 보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동물이 자기가 상상했던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그 동물이 자기가 상상했던 동물이라고 혼자 믿고 살았다. 수십 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가 한 동물을 기르고 있기에 어떤 동물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런데 그 동물이 자기가 평소에 상상했던 희귀 동물이었다. 그 동물을 보니 자기가 상상하는 모양의 동물이 아니었다.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보는 대로 100% 그같이 믿고 살게 된다. 자기 생각대로 보는 대로 100% 뇌에 인식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순하고 무지하다. 고로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32.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10개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 단체의 모든 자들 중에서 제일 큰 고통을 받는다고 100% 생각했다. 그러니 늘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 그 후 그 단체에서 자기 고통을 말하는 발표회가 있었다. 그동안 최고로 고통을 받은 자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 50개, 70개, 90개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 10개의 고통을 받던 자는 그날 비로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작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부터 자기는 고통을 조금밖에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 걱정, 근심, 고통이 뇌에서 짝 사라졌다.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 그중에서 제일 고통을 많이 받던 자는 그동안 자기가 제일 조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고로 평소에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살고 있었다.

33. 세상에 살면서 자기같이 인생에서 고생하며 최고로 고통을 받는 자가 없다고 불행하게 생각하면, 뇌에 그런 고통의 짐이 짊어져 항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34. 생각하는 것에 따라 ‘신’이 되고, ‘사람’이 된다.

35. 생각에 따라 ‘사람’이 되고, ‘짐승’도 된다.

36. 신의 생각, 온전한 주님 생각대로 행하면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37. 그릇된 우상이나 사람이거나 교리를 좋게 생각하고, 좋은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믿고 살다가는 죽은 후에 그 영이 사망으로 가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38. 신은 환경 제재를 안 받고 생각하는 대로 본다.

39. 가령 높이 200m 공중 위에 넓이 30cm의 길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높이 2m 공중 위에 넓이 1m의 길로 보고 생각하면, 뇌에 그 같은 현상으로 바뀌어 보여 공포증 없이 걸어가게 된다.

40. 뇌는 자신이 안정감을 주면 걱정도 염려도 안 한다. 뇌는 생각하는 대로 흡수하고 움직인다.

<2011년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41. 어떤 것은 기도했을 때 즉시 주시지만, 어떤 것은 기도해도 즉시 안 주신다. 첫째, 때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늘의 시간과 인간 세상의 시간이 다르니 주님이 즉시 주셔도 사람이 받을 때는 시간이 걸린다.

42. 가령 주님이 100리 떨어져 있는데 주님을 보고 싶다고 하니 주님이 허락하셨다. 주님이 허락하셨어도 금방 볼 수 없다. 세상이라서 인간이 걸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면 세상이라 시간이 걸린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아니다. 이 세상은 유형 세계라 시간이 걸리고, 또 자기가 그것을 받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있다. 고로 끝까지 하라고 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응답받았어도 받을 때는 세상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여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 그에 해당되게 더 좋게 변화되어 있어

야 한다.

43. 기도했을 때 주님이 순간 응답하셨어도 이 세상은 영계가 아닌 세상이라서 세상의 정해진 시간이 걸린다.

44. 집을 달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았어도 집짓는 시간이 걸리고, 집을 짓는 데 여건을 만드는 시간이 걸린다.

45. 기도했을 때 영의 세계라면 즉시 받는다. 고로 기도 응답만큼은 즉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도 실제로 받는 것은 오는 시간, 만드는 시간이 있어 오래 걸린다.

46. 가령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다 하자. 자기가 있는 곳이 암흑세계이니 빛을 보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는 태양과의 거리보다 100배 더 먼 곳이었다. 주님은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내가 즉시 빛을 보내 주마.” 하셨다. 그런데 그 빛은 800분 만에 도착했다. 세상의 빛으로 보내니 그리 오래 걸리는 것이다. 세상 빛을 보내야 세상에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빠른 빛을 보내도 세상이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물며 빛보다 100배, 1000배 늦은 사람을 보낸다든지, 환경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47. 기도한 것은 주님께 응답은 받는데, 세상이라서 응답받은 것을 실제로 받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48. 영계는 신의 세계라서 가장 빠르다.

49. 영적인 것으로 받으면 세상에서도 빛보다 빠르게 순간 받는다.

50.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도 무엇을 알려 주실 때는 순간 ‘영감’으로 변칙 알려 주신다.

51. 주님이 설교를 써 주셔도 세상이라서 글을 쓰는 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 필요한 만큼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52.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30년 만에 이루어졌고, 어떤 기도는 응답받고 20년,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어떤 기도는 응답은 받았는데 5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래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무슨 기도냐고? 죽을 때 건강하게 잘 죽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니 응답이 왔다. 그런데 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ㅋ 10대 때 기도한 것이다. ㅋㅋ

53.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서 큰 사과를 많이 따서 먹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응답은 즉시 주시되 큰 사과를 먹기까지는 7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큰 사과를 따서 먹게 해 달라고 했으니, 그만큼 나무가 커야 되기 때문이다. 하물며 큰일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였으니, 20~30년은 가야 응답해 준 것을 받지 않겠느냐.

54. 일곱 살 된 어린아이가 냇가에서 작은 고기를 잡다가, 집만 한 고기를 잡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예수님은 꼭 그같이 해 주겠다고 응답해 주셨다. 어린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다. 그는 어부가 되어 오랫동안 고기 잡는 법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는데 집보다 큰 고기가 지나가기에 쳐다보니 고래였다. 어릴 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서 큰 배를 만들고 고래 대포를 만들어서 고래를 잡고 보니 그 나이 40세였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33년 걸린 것이다.

55.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가 하겠다며 주님이 해 주실 것을 포기하고 그 날부터 자기가 행했다. 그러나 자기가 행해서 얻는 것과 주님이 주셔서 얻는 것이 같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것은 크고 이상적이고, 주시고도 제대로 쓰게 하신다.

56. 응답을 받았어도 절대 만드는 기간이 필요하다.

57. 어렸을 때 기도한 것은 성장해야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해가 뜨듯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

58. 거침없는 광명체 태양도 한 번 지면 어둠에 묻혀서 때가 되어야 다시 뜬다. 만물의 법칙같이 인간의 법칙도 그러하다.

59. 큰 것을 받도록 기도해 놓고 지루하게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받도록 어서 성장하고, 받으면 어떻게 쓸 것인지 연구하고 계획하면서 희망으로 살아라.

60. 사람은 무엇을 사람에게 구했을 때 준다고 대답했어도 실상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응답한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신다. 고로 때가 되어 받으면 귀히 쓰도록 절대 희망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61. 주님께 구하여 응답받았지만 오래 있다가 주시니 때가 되어 받아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얻은 줄 안다.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은 것을 놓고 늘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고 잊지 않고 있다가 받아야 된다.

62. 어떤 것이 응답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여 확인하여라. 막연한 생각인지, 자기 심리적인 생각인지, 자기 의지인지, 착각인지 확인해야 된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과 주님의 응답으로 알고 기다리면 죽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잠을 많이 자면 영이 죽고, 잠을 안 자면 육이 죽는다. 육도 영도 모두 살도록 분별하고 행하여라.

2. 주님은 큰 것은 도와주시고, 작은 것은 깨닫게 해 주어 스스로 하게 하신다.

3. 자신이 할 것을 주님이 늘 해 주게 되면 자기에게 의가 없고, 자기 육신도 마음도 영도 변화되지 않는다.

4. 사람이 할 일을 모두 주님이 해 주신다면 사람이 사는 보람도 기쁨도 없을 것이다.

5. 사랑도 자기가 해야 느낀다. 또한 사랑을 받는 자도 그 사랑을 받고 느끼게 된다. 고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건을 틀어 주기도 하신다.

6.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해 주고 안 도와주느냐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마음 거스르는 말을 하지 말아라.

7. 자기가 해야 선악이 무엇인지 알고 판단하게 되고 스스로 행하게 되어 육신의 행위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변화되고, 이에 따라 영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8. 만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려운 일도 다 해 주시고,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것까지 다 해 주신다면 인간은 존재를 못한다. 행해야 느끼고, 행해야 깨달아지고, 행해야 알게 되는데 행하지 못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돌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9. 사람이 가만히 편히 방에 누워 있기만 하면 무감각하고, 자기가 방 안에서 본 것만 느끼고 알기 때문에 잠재능력에 있어서 식물인간이 되게 된다.

10. 행복과 불행, 추위와 더위, 눈과 비, 뛰는 것과 걷는 것, 서 있는 것과 앉아 있는 것 등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겪어야 겪은 대로 발전하게 되고,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보람을 느끼며 살게 된다.

11. 사람이 땅만 위해 살면 땅의 것만 깨닫고 알고 끝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거기에 해당되게 행하며 살 때, 하늘의 이상을 생각하고 느끼고 깨닫고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까지 가게 된다.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우리가 간구해도 주님은 지난날 행한 공적을 보고 주신다.
2.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께 간구했을 때 지난날 우리가 행한 공적을 보고 주시되, 지난날 하나님 앞에 쌓은 공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새롭게 주신다.
3. 은행에 적금 들어 놓은 것을 보고 그 신용으로 대출해 주듯이,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은 저마다 공적을 보시고 주신다.
4. 우리 육이 육계에서 어떤 사물을 볼 때 똑같은 사물이지만 보는 자의 지식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본다. 우리 영이 영계의 만물을 볼 때도 그러하다. 영급대로 보는 자에 따라 다르게 본다.
5.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사물이나 사람을 보아도 보고 와서 말하라고 하면 각각 다르게 말한다. 자기 차원에 따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6. 제자리에 서 있는 자는 그 시대 그 사람으로 끝이 난다. 동행하는 자는 그때 그 시대 사람도 되고, 현 시대 사람도 된다. 서 있는 자는 길가의 가로수 같은 인생같이 그때 만나고 사랑하고 가까이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자다. 그러나 동행하는 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여전하게 역사를 같이하게 된다.
7. 축구 세계에서는 축구를 하는 자만 알아주고, 정치 세계에서는 정치가만 알아주고, 시장에서는 시장 물건만 알아주듯이 섭리세계 신앙세계에서는 신앙만을 최고로 알아준다. 인물, 재능, 소질, 학문, 정치, 운동, 명예 등 그 어떤 것을 가진 자라도 그것들을 신앙의 빛이 나는 데 써서 신앙을 빛내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생도 안 알아준다. 신앙이 빛나는 자는 초신자라도 바로 청중 앞에 서게 한다.
8. 이 세상에 어떤 크고 큰 것도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여 값을 따질 수 없다. 이 세상 것과 영원한 세계의 것은 아예 비교가 안 된다.
9. 이 세상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어도 그것을 투자하여 천국의 한 단계 차원 높은 곳에 가는 것이 영원히 가치 있다.

<2011년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엄한 법을 쫓다고 지키기 어렵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여라.
2. 엄한 법을 지키면 그만큼 안전하고 좋은 세계로 가게 된다.
3. 엄한 법일수록 지키면 유익하다.
4. 보통 법이나 엄한 하늘의 법이나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5. “술 취하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성적 타락을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을 주었다. 이 법을 지키면 건강해서 좋고, 또 심령이 깨끗하여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인도되니 얼마나 좋으냐. 만일 엄한 법을 안 주면 법이 없으니 마음대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계속 성적 타락을 하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해가 되어 인생 망한다. 그것이 좋겠느냐. 세상은 술과 담배로 인하여 상상도 못 하는 많은 자들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병들어서 일찍 죽는다. 또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폐인이 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엄한 법을 지켜 행한 자들만이 그로 인하여 인생을 망치지 않았고, 건강에도 성공했고, 사랑에도 성공하여 그 영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그 육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즐거워하며 산다.
6. 섭리사에 사랑 법뿐 아니라 각종으로 엄한 법을 준 것은 최고의 이상세계 천국을 이 땅에 지향하게 하려 함이다.

또한 섭리사에 온 자들은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고, 섭리역사는 마지막으로 사랑을 최고 성결하게 하는 성약 신부역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적으로 종교를 깨끗이 정화시키시며 구원역사를 펴 오셨다.

7. 사람은 크면서 더욱 죄를 짓게 되고 오염된다. 그러나 종교 역사는 역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며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신다. 고로 신약역사 때는 마음을 지키라는 율법까지 주시어 구약역사보다 더 깨끗이 하시고, 아들의 몸으로 부활시키셨다. 또 성약역사 때는 더 엄한 법을 주시어 신약역사보다 더 깨끗이 하시고, 성결한 신부의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8. 엄한 법은 더욱 온전하게 구원받는 생명을 만든다.

9. 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

10. 법이 없으면 몰라서 함정에 빠지고 안타깝게 죽기도 한다.

11. 하나님의 법은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다.

12. 하나님의 법은 인생의 답이다. 보호다. 늦 성벽이다.

13. 한 지역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1년에 수백 명씩 죽었다. 상어 떼에게 잡아먹히거나, 조류 때문에 쏠려 들어가 죽은 것이었다. 고로 이를 알고 그 바다에서 수영을 못 하도록 엄한 법을 주었다. /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수영을 못 하게 엄한 법을 주었다고 원망하며 법 때문에 자유롭게 못 살겠다고 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몰래 수영을 했다. 이들은 상어 밥이 되었고, 조류 때 급물살에 빨려 들어가 죽었다. 그러나 법을 지킨 자들은 평생 죽지 않았다. /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랑의 법을 엄하게 주신 것은 사탄과 악한 자들이 생명들을 사망으로 끌어가 고 자신 스스로 정신이 썩어 천국길을 못 가기 때문에 법을 지켜 안전하게 보호 받으라고 함이다. / 엄한 법일수록 흑암에서 생명으로 가는 빛과 같다. 엄한 법이 있어야 생명이 안전하다.

14.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전에는 엄한 법이 없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한 법이 생겼다. 한 선장이 그 바다에서 배가 암초에 부딪쳐 파선하는 것을 많이 보고, 그 후에 법관이 되어 힘들지라도 배가 돌아가게 항로를 바꿔 놓은 것이다. 그 법을 지킨 배는 한 대도 암초에 파선되지 않았고, 몰래 법을 어긴 배는 스스로 파선되었다. /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주님은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법을 엄하게 주시고 법의 차원을 높이셨다. 고생되어도 그 법을 지켜야 그만큼 천국 항해가 안전하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악한 시대에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

<2011년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기성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이성의 개념이 없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좋게 본다. 이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며, 또 이성으로 타락시킨 루시퍼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인생들의 천적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성 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과일을 따 먹고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으로 알고,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에덴동산의 과일만 안 따 먹으려 한다. 그 과일을 제대로 알면 절대 아담과 하와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의 그 과일을 따먹지 않는다. 그러나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니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10번, 100번, 수백 번씩 따먹어 죄를 산같이 짓고도 “나는 아담같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안 따먹었다.”라고 한다. 아담과 하와보다 10배, 100배나 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 모른다. - 힌트를 주면 알까? 남자는 아무리 수백 개를 따먹어도 배가 안 나오지만, 여자는 한두 개만 따먹으면 배가 터지게 나온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과일이다. 그 과일을 만드시려고 130억 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 우주와 태양계와 지구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16. 어떤 마을에 젊은이들이 그렇게도 많이 죽어 갔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가도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전설만 흘렸지, 정확한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젊은 사람이 희귀종이 될 정도로 마을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노인들만 득실거렸다. 그나마 젊은이들이 살아 있으나 그들도 꼭 죽을 운명이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젊은이가 죽으면서 써놓은 글이 있었다. 동산 중앙의 과일을 따 먹고 죽었다고 써 있었다. 고로 모두 그 마을 동산 중앙의 과일만 못 따 먹

게 했다. 고로 그 과일을 안 따 먹었는데도 젊은이들은 계속 죽어 갔다. 그 마을의 한 청년이 동산에는 과일나무도 없고 그 과일을 안 따 먹어도 죽으니, 이는 분명 과일이 아니고 안 따 먹을 수 없는 어떤 것을 과일로 상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동산 중앙의 과일은 성적 지체, 곧 사랑의 과일임을 깨달았다. 이를 깨닫고 성장기에 그 과일을 못 따먹게 하니 젊은이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을 들은 젊은이들은 다 살았다.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과일은 사랑의 과일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랑하지 않고, 성장하기 전 어렸을 때 사랑하는 법을 어겼다. 그 법을 어겼기에 죽은 자 취급을 받고, 그 육신도 영혼도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한 것이다.

17. 사랑의 타락을 깨닫지 못하여 못 막으니 기성의 젊은이들이 조류독감에 걸린 조류들처럼, 구제역에 걸린 동물들처럼 죽어서 사망의 길을 가도 모른다. 동산 중앙의 과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자만 방지한다. 먹으면 죽는 독과일이 라면 누가 먹겠느냐. 먹으면 사랑의 쾌감을 느끼니 먹는 것이다.

18. 어떤 산의 식물은 사람이 어릴 때 성장기 때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커서 먹으면 안 죽는다. 산의 어떤 약초도 뜨겁게 끓여서 먹으면 죽고, 차갑게 먹으면 안 죽는다고 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뜨겁게 끓여서 먹고 다 죽었다. 이와 같이 '사랑의 과일'은 먹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먹어야 하나님의 법에 안 걸려 안 죽는다. 과일은 제철 과일이다. 사랑도 제때다.

19.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사랑 법을 제대로 알고 지키며 산다면, 사랑 세계 최고의 법을 지킨 자가 된다.

20.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 법, 곧 육적 최고의 법을 몰라서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못 간 것이다.

21. 6000년 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 잘못 해석하여 그 법을 못 지키고 계속 죽어만 갔다. 그 사랑의 법을 제대로 풀 때, 비로소 이 땅에 에덴동산의 사랑을 복직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맞고 그 보낸 자를 맞게 된다.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펴기 위해 주님이 보내신 자는 에덴동산 역사 이후 6000년이 끝나고 7000년 역사에 들어가면서 그 사랑의 법을 풀게 된다.

22. 자기 조상이 그 산골짜기에서 무엇을 캐 먹고 일찍 죽었는지 모르면, 그 후손들도 그것을 캐 먹고 계속 일찍 죽는다. (선생의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건강에 좋다는 어떤 약초를 캐다가 삶아서 뜨겁게 해서 먹고 죽었다고 가르쳐 주었다. 고로 선생은 그 약초에 대해 알고 안 먹었다. 그래서 살았다.)

23. 선생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과일을 따먹었기에 영이 죽고 육신이 죽어 사망권에 거하게 되었는지, 주님이 깨우쳐 주시어 확실히 깨닫고 알았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는 에덴동산 중앙의 과일로서 무서운 과일이다. 밤송이같이 생기고, 옥수수수염이 붙은 옥수수같이 생긴 털 과일이다.

24. 뱀 중에는 털이 한 뼨씩이나 긴 뱀이 있다. 그 뱀은 사탄을 상징한 뱀으로서 너무 무섭다. 그 뱀을 본 자들은 드물 것이다. 주님은 꿈의 계시로 보여 주신다. 털 달린 그 뱀은 루시퍼를 상징한 사탄이다. / 털이 꼭 절어 있는 과일도 그렇게 무섭다.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그 털 과일을 먹고 죽었다. 그 과일이 얼마나 독하고 영향력이 큰지, 4000년 동안 그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털 과일은 섬뜩하다.

25.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그 과일은 에덴동산 중앙의 털 과일이었다. 그중의 하나는 털 생명나무 과일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털 선악과 과일이었다.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2.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말한 것같이, 모든 법은 “범하지 말아라. 법을 범할까 하니, 아예 그 법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함이다.

3. 법을 잃으면 법을 범하게 된다.
4. 법은 하나님이며 예수님이시다. 고로 법을 잃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잃은 것이 된다.
5. 작은 법도 큰 법도 다 지켜야 깨끗하다.
6. 가령 ‘이곳에서 소변 보지 마라.’가 작은 법이고, ‘대변 보지 마라.’가 큰 법이면 작은 법도 큰 법도 다 지켜야 깨끗하다.
7. 법은 진리다. 작은 진리든지 큰 진리든지 다 지켜야 깨끗하다.
8. 주님의 작고 큰 말씀을 모두 지켜야 온전하다.
9. 시간을 지키는 자에게 “시도 지켜라. 분도 지켜라. 초도 지켜라.” 함이다.
10. “큰 쓰레기뿐 아니라 작은 담배꽂초도 버리지 마라. 작은 휴지도 버리지 마라.” 하면 작은 쓰레기와 큰 쓰레기 모두 다 버리지 말아야 깨끗하듯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조금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큰 거짓말이나 작은 거짓말이나 모두 하지 말아야 된다.
11. 작든지 크든지 분노와 혈기를 내고 법을 범하여 죄를 짓지 말아라.
12. 과일을 만지는 것이 작은 죄라면, 과일을 따먹는 것이 큰 죄다. 작은 죄로 인하여 큰 죄를 짓게 된다.
13. 작은 섭섭함으로도 법을 범하지 말고, 큰 섭섭함으로도 법을 범하지 말아라.
14.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법도 범하지 말아라.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큰 법도 범하지 않게 되어 큰 죄인이 되지 않는다.
15.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일에도 충성하게 된다.
16.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보통으로 짓는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거스르게 되어 주님은 그를 향해 계획한 큰 일도 주지 않으신다.
17. 운동하는 자가 잔 실수를 자주 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감독은 교체하여 뛰게 하지 않는다.
18. 큰돈도, 작은 돈도 모두 갚아라.
19. 작은 병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큰 병이 시작된 것이다.
20. 작은 자도 잘 대하고 큰 자도 잘 대해라.

<2011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21. 작은 법을 안 지키는 자는 큰 법을 범하여 큰 죄를 짓게 된다.
22. 옷을 세탁할 때 작은 때와 큰 때 모두 다 깨끗하게 빨아야 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작은 죄와 큰 죄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23. 작은 죄들이 회개되지 않은 자들이 많다.

24. 씻을 때 작은 더러움을 안 씻으면 역시 더럽다.
25. 손에 조금만 무엇이 묻어도 씻어야 되듯이,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여라.
26. 과일을 먼저 깨끗이 닦은 후에 껍질을 벗기듯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고 온전히 행하여라.
27. 마음이 병들면 쉽게 썩는다.
28. 뇌는 마음이다. 생각을 나쁘게 하면 곧 마음이 병든다.
29. 오직 나 예수의 생각이다.
30. 최첨단의 시간은 1초다. 초까지 지킨 자를 100% 시간을 지켰다고 한다. 100m 경주에서는 초만 가지고 계산한다.
31. 이와 같이 신앙에서도 주 앞에 예리한 법과 진리로 계산한다.
32. 주님 앞에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아라.
33. 설교는 전능자의 말씀과 구세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고로 작은 것이라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전하여라. 교회 일을 하는 사명자들도 작은 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34.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온전히 하는 자들에게 항상 지적받게 된다. 답답하여 마음에 꺼려 늘 말하게 된다.
35. 큰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잘 아는데, 작은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잘 모른다. 사탄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 중에 작은 것들을 점점 범하게 하면서 작은 죄를 짓게 하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랑도 무너뜨리고 신앙도 무너뜨린다. 근신하여라.
36. 작은 일이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다가 결국 큰일까지 자기를 중심으로 하다가 자기 길로 빠진다. 자신을 자세히 살펴라.
37.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한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을 만지는 자와 같아서 그 일에 있어서 이미 작게 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38. 법은 진리다. 고로 연구하여 행할수록 변하게 된다.

<2011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계를 정해 놓으시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것을 죄로 규정하셨다.
2.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한계를 정한 곳을 넘어가서 삶을 사니 법칙에 벗어난 연고로 죄가 되어 해가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스스로 넘어지며, 육도 영도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면서 산다.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 아래 살게 된다.
3.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면 생명길이 아니다. 사망길이다.
4.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한계선을 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셨다.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 절벽이요, 죽음이요, 고통과 신음과 병듦과 걱정과 근심과 아픔이다.

5.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선 안의 삶이 합당한 천국의 삶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선을 넘어가면 사탄이 살고 있기에 사탄이 주관한다.

6. 인간은 무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 살기를 원한다. 이는 육적인 쾌락이요, 먹고 즐기는 즐거움과 이성과 사랑의 즐거움이며 자위행위와 육적인 즐거움들이다. 육에 속한 삶은 한계를 넘어가서 사는 삶이다.

7. 주 안에서 한계를 넘지 않는 삶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다.

8. 육에 속한 시간과 생각과 행위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고, 영에 속한 시간과 생각과 행위는 한계를 넘어가지 않게 한다.

9. 어린아이들이 한계를 못 넘어가도록 줄을 쳐 놓았다. 그 줄을 넘으면 수렁이다. 그 안에는 썩은 물이 있고, 뱀들과 독벌레들이 있는 곳이다. 어린아이들은 마치 양이 목자가 쳐 놓은 줄을 넘어가듯 그 줄을 넘어가서 수렁에 빠지고 독벌레에게 물린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모든 법으로 한계를 정하신 것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10.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까지만 살피시고 관리하시고 관찰하여 보호해 주신다.

11. 한계를 벗어나서 행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요, 공의를 벗어난 행위다.

12. 사랑을 행하는 것도 한계선이 있고, 의를 행하는 것도 한계선이 있다.

13. 믿음도 한계가 있다. 지나치게 믿다 보면 선을 넘어가 해가 된다.

14. 모든 행위에는 한계가 있으니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으면 변질되고, 해가 되고, 스스로 넘어짐이 심하게 된다.

15. 주님은 천사들과 사명자와 함께 한계선에서 지키며 누가 한계를 넘어가는지 불꽃같이 지키신다. 마치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에서 지키는 군사같이 사탄의 세계에 넘어가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16. 한계선을 넘어간 자는 즉시 회개하여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고, 죄를 씻어 주님의 한계선으로 다시 그 행위가 넘어와야 된다. 그래야 그 행위가 빛 가운데 다시 소생하게 된다.

<2011년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별의별 방법으로 시간을 뺏는다. 시간 뺏기면 패한 것이다.

2.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자기가 만든 조각 작품이 다 좋은데 한 부분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전체를 쳐다보기가 싫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다면 오죽하겠느냐.” 하셨다.

3. 자기가 만든 자가 마음에 들면 그것이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4. 사람이 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5. 네 마음을 늘 나 예수의 마음에 들게 하여라.

6. 몸은 기구다. 마음 없이 몸은 움직이지 않는다.

7. 마음의 생각으로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8. 몸은 마음의 기구다. 마음 생각을 가지고 몸을 움직인다.

9. 주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습니다.
10. 마음이 시동을 걸지 않고서는 평생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11.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큰 자다. 정신적 지도자다.
12. 마음을 움직여서 몸을 이끌어 간다.
13. 마음이 약한 자는 몸이 커도 약한 자다.
14. 마음 연단, 정신 연단, 몸 연단이다.
15. 단련하고 연단하면 10배, 100배 강하다.
16. 주님의 생각, 마음, 정신으로 자기 몸을 움직이며 쓰는 것이다.
17. 주님의 생각, 마음, 정신으로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몸을 통해 행하시는 것이다.
18. 자기 몸은 물에 뜬 배요, 자기 마음은 배에서 내리게 하고 주님을 배에 태우고 주님이 노 저어 가게 해야 된다.
19. 주님께 우리 몸이라는 배만 빌려 주면 주님이 노 저어 행하신다. <삽화> 바다 위에 떠 있는 나룻배 (위에 갈매기들) / 배 앞머리 쪽에 우리들 얼굴 그려 넣는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양손으로 두 개의 노를 잡고 노 저어 가시는 모습
20.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다.
21. 깨끗한 자기 몸에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와서 자기의 욕을 사용하게 하여라. 그러면 주님의 행하심이 눈에 현히 보인다. 오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신비, 주님의 웅장함, 주님의 아름다움이다.
22. 주님께 자기 몸을 내주는 자를 주님은 쓰신다. 자기 마음과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쳐다보며 배우는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이 아무리 온종일 착한 말을 해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2. 사탄이 온종일 방에 같이 있으면서 아무 해를 안 끼쳐도 모두 쫓아내야 된다. 이는 사탄이 우리가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가 주와 함께 일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탄에게 말해서 그 사탄이 와서 해하게 한다.
3. 사탄의 깊은 행함을 알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를 안 준 사탄은 하나도 없다.
4. 우리 옆에 눈의 소경인 사탄이 있어 우리를 못 본다 해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사탄은 썩는 배설물 같아서 냄새로 해를 주고, 흑여 우리를 사탄이 못 본다 하더라도 다 느끼고 해를 끼친다.
5. 사탄이 없도록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행하여라. 그래야 주님이 편히 말씀하신다.
6. 사탄은 불러들이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다. 아주 비열하다. 제 맘대로 한다.

7. 사탄을 없애야 마음이 괴롭지 않고 불만도 없게 된다.
8. 사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해를 주며 사람들을 자기 고통을 푸는 자료와 대상으로 사용한다.
9. 사탄은 사람을 쓰고 거짓, 폭력, 공갈, 협박, 음모, 수군수군 등 수천가지 비열한 행위를 한다. 사탄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영물이다.
10. 왜 이같이 비열하고 더럽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해를 주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해를 주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지 모두 이해가 안 될 것이다.
11.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를 뿐이다.
12. 하나님은 사탄을 영원한 지옥에 넣고 영원히 고통 받게 예정해 놓으시고 계속 지옥에 넣으신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런 하나님이신데, 사탄들을 두고 보고만 계시겠느냐.
13. 여름철 모기들은 때가 되면 추워서 한 마리도 없이 멸절되듯이, 사탄도 이와 같이 때가 되면 없애신다.
14. 사탄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역사한다. 고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 예수님을 절대 믿고 그와 일체 되면 사탄이 절대 침범하지 못한다. 자기의 온전한 믿음과 행위로 사탄을 멸하여 이겨야 된다. 여름철 모기 방지하듯 하면 된다.
15. 인간이 사탄을 절대 멸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만큼 사탄과 멀어지고 사탄을 멸하게 된다.
16.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섬기고 절대시하지 않으면 사탄은 자동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 자기가 싫어한다고 해서 사탄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사망권에서 나와야 사탄이 오지 못한다. 여름철에 숲속에서 도시로 나와야 모기 주권권을 떠나게 되는 것과 같다.
17.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사탄의 법을 지킨 자가 되어 사탄이 주관하게 된다. 죄를 알고 즉시 회개하고 없애야 사탄이 없어진다.
18. 죄와 사탄이다.
19. 전능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신다. 자신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법에 순종함으로 사탄을 멸해야 된다.
20. 사탄은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 악한 대로 주관하고 무력으로 주관하기도 한다.
21.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다. 전능자 하나님은 사탄을 멸할 날을 아예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사탄들을 영원한 불바다로 보내시어 사탄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나머지 사탄들도 영원한 고통을 주시려고 예정해 놓으셨다.
22.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자기가 얼마든지 사탄을 없앨 수 있다. (아멘!)

<2011년 11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23. 성경을 읽을 때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차원으로 행한 것을 기록했는지 알고 이해해야 거부감 없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 옛날 3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발달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고로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면 내용이 차원이 낮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24. 하나님은 인간이 발달되지 못한 어린아이들 같은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차원과 그 당시 현실에 처한 환경에 따라 역사해 오셨다. 고로 6000년 전의 역사는 6000년 후 발달된 세계에서 보면 수준이 낮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눈 아래로 보이고 우러러 보는 것이 약하다. 각 나라들이 100년 전, 150년 전, 20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라. 300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겠느냐. 성경은 6000년 전에서 2000년 전에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 아마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행한 일을 기록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 엄청난 내용이 기록됐을 것이다.

25.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 행할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26. 지금 발달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6000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기록되어 있는 일들에 비해 너무나도 차원이 높다.

27.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행하시는 것과 어른들을 통해 행하시는 차원이 다르다.

28. 세상의 것들은 인간들을 통해 행한 일이라 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9.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과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너무 엄청나서 이해가 안 된다. 성삼위께서 행하신 일은 우주 창조, 지구 창조, 만물 창조다. 또한 천국 창조다. 천국에 가 보아라. 인간을 통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들은 영원히 봐도 다 이해를 못 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 해도 못 믿는다. 그만큼 엄청나기 때문이다.

30. 어른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행한 일과 어른 자신이 어린아이를 안 통하고 직접 한 일은 비교가 안 될 것이다.

31. 가령 여덟 살 어린아이를 통해 건물을 지었다 하자. 얼마나 크게 지었겠느냐. 그러나 어른이 직접 건물을 지으면 빌딩을 짓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행하신 일과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일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 / 성경도 그같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옛날에는 어린아이 통해서 행하시듯 행하셨고, 지금은 어른들 통해서 행하듯 행하신다. 이 시대는 인간들이 더욱 발달되었기에 더욱 성장되고 발전된 뜻을 펴신다.

32. 성경을 풀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옛날은 어린아이같이 성경을 풀고 행했다. 구시대 기성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 어린아이같이 성경을 풀고 생각하고 행해 왔다.

33. 한 개인이 행한 일을 놓고 봐도 0대, 10대, 20대, 30대 때의 생각과 행실의 차원이 다르다. 0대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10대 때는 생각하게 되고, 20대에는 행하게 되고, 30대에는 행한 것을 얻고 먹고 취하며 살게 된다. / 하나님의 인류 역사도 그러하다. 지금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은 성경을 그 수준으로 풀어 구약시대를 못 벗어나고 구약식 신앙생활을 한다. 또한 신약시대를 못 벗어나고 신약식 신앙생활을 한다. 이 시대급으로 성장된 자들은 이 시대에 해당되게 성경을 보고 풀고 행한다. /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가 배운 대로 행한다.

34. 인간의 생각과 행위가 발달하는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을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비해 약할 수밖에 없다.

35. 하나님이 높은 차원으로 인간을 통해 행하고 싶으셔도 인간이 이해를 못 하니 할 수가 없다. / 이와 같이 현 시대도 영적인 높은 차원의 것을 아는 자가 영적 세계와 시대의 새 말씀을 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안 믿고 거부한다. 하나님도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는 만큼 역사하시니 어쩔 수 없다.

36. 아무리 시대가 발달된 한 시대에 살아도 각 사람마다 자기 지능, 지식, 행위가 발달된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다.

37.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이 무엇을 행하기를 급히 원해도 먼저 자녀를 기르고 가르쳐서 자녀가 성장해야 행할 수 있다.

38. 손자를 일찍 보고 싶다고 7~8세 어린아이를 결혼시켜 아이를 낳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류 역사를 성장시키지 않고서는 구원 역사를 펴실 수 없었다. 고로 먼저 인류 역사를 성장시켜 인간이 깨닫고 발달되는 대로 뜻을 펴신다.

39. 농부가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 과일 잔치를 해 주려고 과일나무를 심었다 하자. 봄에 아들을 결혼시키면 과일나무의 꽃밖에 못 본다. 여름에 아들을 결혼시키면 과일이 크고 있기에 따지 못하여 과일 잔치를 못 한다. 늦어도 가을에 결혼시켜야 과일 잔치를 하게 된다. /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인간이 발달하는 대로 뜻을 펴신다.

40. 하나님이 각 개인을 통해 뜻을 펴실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펴야 될 뜻을 펴신다.

41.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아도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게 법을 주신 것을 보고 성경에 써 있으니 그것을 믿고 행한다. 그 법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시대 법이었다.

42. 같은 문화권 시대에 살아도 깨닫고 실천하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함의 차이가 수백 년 차이가 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한 시대에 같이 살아도 깨닫고 행하며 사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자는 수천 년 차이가 있다.

43. 하나님도 예수님도 어느 시대든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자를 중심하여 뜻을 펴 나가셨다. 특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실 때는 시대 중심자를 예비하시어 먼저 그에게 시대의 모든 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펴 나가게 하셨다.

44. 전능자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의롭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그 행위로 더욱 무지의 사망권을 벗어나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45. 먼저 알고 깨닫도록 시대마다 중심자를 보내어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역사를 펴 나가셨다. 그 시대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후에 따라오게 하시고 따라가는 자들을 데리고 시대 역사를 펴 나가셨다.

<2011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순간 잠이 들어 한 번 그 길을 떠나면 산을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된다. 아예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한 번 떠나면 중간에 내려오는 길이 없다. (주님이 새벽 1시에 깨워 주셨는데, 그때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의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새벽 2시 10분에 일어났다.)

2. 모든 세상 육의 시간도 한 번 가면 끝까지 갔다가 와야 된다. 고로 안 할 일은 아예 안 해야 된다. 안 할 일도 한번 하면 순간 끝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모두 다 들어가야 끝나게 된다. 만사의 모든 시간이 그러하다. 작은 일이든지 큰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 시간을 쓰면 중간에 내려오는 길이 없어 중간에 끝낼 수가 없다.

3. 아예 필요 없는 길은 떠나지 말아야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 잠도 한 번 자고 또 자면 한 코스를 자야 잠에서 깬다.

4. 떠나고 안 떠나는 것은 자기 행실의 마음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에 달려 있다.

5. 자기 행실에 따라 자기 마음을 주관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6. 자기가 자기 마음과 행실을 주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 최고 쉬운 일이면서도 최고 어려운 일이다. 자기 마음과 행실로 자기 육과 영의 구원, 혹은 멸망을 좌우한다.
7. 자기 마음과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고 주권이 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뜻대로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 그 영혼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8. 누구든지 자기가 마음을 100% 주님의 뜻대로 먹는 자는 최고의 주관자다.
9. 자기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면 만물도 주관하고 다스린다.
10. 자기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11. 자기 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몸을 안 아프게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몸이 고생하지 않게 다스릴 수 있다.
12.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쉽게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13. 고로 기도하여 마음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 몸을 능히 쉽게 다스릴 수 있다.
14.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다스려 세상을 위해 쓰는 것과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다스려 자기 영을 위해 쓰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다스려 세상을 위해 쓰는 것은 보다 쉽지만, 자기 영을 위해 쓰는 것은 어렵다.
15. 기도와 열심과 부지런함과 영적 능력이 있어야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다스려 자기 영을 위해 쓸 수 있다.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6. 주님이 함께해 주셔도 자기가 인간으로서 할 일이 있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 주님이 함께해 주셔도 자기가 해야 된다.
17. 육이니 자기가 잠도 자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옷을 입고, 자기가 목적지를 가야 된다.
18.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라도 인간은 자기를 위해 먹어야 되듯이 자기가 해야 된다. 인간이 힘들다고 주님이 대신 먹어 줄 수 없듯이, 힘들어도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러한데,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안 해 주지?” 하며 불평한다.
19. 자기가 해야 육과 영의 공력이 쌓이고, 자기 육과 마음과 영이 변화된다.
20. 자기가 하면 주님은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
21.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애인을 위해 대신 먹어 주고 입어 주고 잠을 자 줄 수 없다. 주님의 입장도 그러하다.
22. 일도 자기가 해야 된다. 호흡하는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 듣고 행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느끼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다.
23.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데 있어 생명이 살려면 모두 자기가 해야 자기를 존재시킨다.
24. 주님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 도와주는 것은 하시는데, 아예 다 해 주지는 않으신다.

25.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가 할 일을 다 해 줄 수는 있지만 한계를 넘은 것은 해 줄수록 자기에게도 손해요, 사랑하는 자에게도 손해다. 그러면 계속 게을러지고, 발전이 없고, 본인이 행하지 않음으로 못 느끼니 무력한 동물이 된다.
26. 사람의 지체도 각 지체에 해당되는 일은 그 지체가 한다. 다른 지체는 돕는 것밖에 못 한다.
27. 예수님의 영체가 육체가 된다 해도 우리 대신 밥을 먹어 주지 않으시고, 대신 잠을 자 주지 않으시고, 대신 옷을 입어 주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 자기가 천국에 간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대신 죽어 주시고 모두 행하도록 구원길을 열어 주셨다. 주님은 항상 해 줄 것을 다 해 주셨다. 이제 자기가 할 것만 남아 있다. 곧 주님은 책임을 다하셨다. 이제 자기 책임만 남아 있다.
28.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돕고 용서해 주시는 일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신다.
29.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힘들다고 예수님이 대신 회개해 줄 수는 없다. 다만 회개하라고 도우시고 감동을 주실 뿐이다.
30. 주님은 메시아로서 사람이 각자 행할 때 그 행위에 따라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다.
31. 주님께 깊이 기도하여 영계나 육계의 것을 물어보면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기도 하신다.
32. 자기 할 일이 힘들다고 주님께 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해라. 하면 천사들이 뒤에서 밀어 주고, 앞에서 주님이 끌어 주신다. 영의 눈을 떠서 보니 하는 자에게 천사와 예수님이 그같이 해 주고 있었다. 믿어라!
33. 자기 존재를 위해 꼭 행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꼭 할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다.
34. 내 책임, 네 책임이다.
35. 둘이 하나다.
36. 난자와 정자가 하나 되어 인간의 생명체를 탄생시킨다.
37. 자기 편하려고 온종일 자기 할 일 안 해 봐라.
38. 자기가 편안하려고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바로 죽는다.
39. 할 일을 안 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40. 죽은 자는 기능을 못 한다.
41.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편안할 것 같아도 지옥이다.
42. 할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이다.
43. 고통스러워도 할 일을 해야 희망이 불타고, 몸이 날고, 느끼고, 기쁨과 행복이 온다.
44.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면 결국 지옥 고통이 온다.
45. 사랑할 자와 사랑해야 사랑 천국이 되듯이, 자기 할 일을 해야 천국의 삶이 된다.

46. 세상 모든 일,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일 하듯 자기 할 일을 하여라.
47. 배고플 때 먹듯이, 사랑할 때 사랑하듯이, 추울 때 입듯이, 잠 잘 때 자듯이 기뻐하며 자기 할 일을 해야 성공한다.
48. 나는 구상, 너는 실천이다.
49. 나는 입에다 과일을 넣어 주고, 너는 깨물어 먹기다.
50. 나는 명령하고, 너는 행하기다.
51. 나는 기도를 받고, 너는 기도하기다.
52. 나는 새벽 1시에 깨워 주고, 너는 일어나기다.
53. 나는 영이고 너는 육이니 내가 말하면 네가 행해야 된다. 네가 행해야 육도 영도 변화를 얻는다.
54. 너는 육체이니 땅에서 휴거시키고, 나는 영이니 천국으로 휴거시킨다.
55. 때가 되었으나 세상은 모른다. 나의 재림의 역사가 땅에서부터 먼저 육 있는 자로부터 시작되었다. 육 휴거 먼저다.
56. 모르는 자는 소경이니 앞에서 해도 모르고, 지금도 한 시대가 가도 나 예수가 육으로 세상에 왔을 때같이 모른다. 온전히 확실히 아는 자 한 명만 있으면 그와 역사를 시작한다.
57. 언제 땅에서 모든 자들이 알아줘서 나의 뜻을 이루었느냐.
58. 나 예수 혼자 와서 전하고 가르쳐서 한 명, 한 명 알게 하여 그들을 통해 지구 세상에 나의 뜻을 이루었다. 재림 때도 그러하다.
59. 나 예수가 아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펴고 모두 다 끝나고 간 후에 그제야 미련한 자들은 알 것이다.
60. 소경이라서 농부가 씨 뿌리고 갔어도 모른다. 씨 뿌린 것이 황금벌판 되면 알 것이다.
61.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 악의 씨를 뿌려 놓고 가고, 나 예수는 때가 되면 천국의 씨를 뿌려 놓고 간다.
62. 자기 할 일을 다 한 자는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고, 힘들다고 자기 할 일을 안 한 자는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슬픔과 고통을 받으며 산다.
63. 자기 할 일을 꼭 행하여 나 예수와 같이 먹고 마시자.
64. 지금 전심으로 안 하면 모두 다 기회를 놓친다.
65. 기회는 하룻저녁에 한 번이다.
66. 기회 지나가면 사탄 주관권 세계다.
67. 하늘이 주신 기회의 때에 주관권을 넘어와라.

68. 할 일을 한 자만 생명의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나뭇가지로 끝난다.

69. 자기 욕도 영도 할 일을 하여 구원을 얻는다.

70. 육적으로 즐기며 살다가 육에서 끝나 땅바닥에 붙어 있다. 나와 같이 즐기며 산 자는 육에서 영으로 연결되어 하늘에 붙어 있다.

<2011년 11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야지,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 -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생명으로 끝나야 된다는 말이다.

2. 생명을 사망으로 끝나게 하지 말아라.

3.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길로 가고 영원히 하늘 천국으로 가서 생명으로 끝나게 된다.

4. 인간의 생명이 시작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혼의 생명이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

5.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게 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끝나게 하여라.

6. 사랑을 미움으로 끝내지 말아라. 그러면 죽음이다.

7.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야지, 믿음이 변하여 의심으로 끝내지 말아라. 그러면 죽음이다.

8. 섭리역사는 섭리역사로 끝나게 하여라. 가다가 변하여 다른 세계로 가서 끝내지 말아라.

9. 주님은 주님으로 끝나게 하여라. 영원히 주님만 믿고 살라는 것이다.

10. 우상 숭배는 오늘로 끝내라. 생명이 없다. 영혼 구원이 없다. 우상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도 아니다. 인간이 만든 신상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산 사람만도 못한 물건들이다. 돌과 쇠와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므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11. 일어나라. 음부를 이겨라.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음부를 이기는 것이다.

12. 음부란 어둠이요, 죽음이요, 사망을 말한다. 일어나 주님의 뜻으로 활동하면 빛이다.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것이다.

13. 일어나면 곧 빛을 발하게 된다. 고로 어둠이 물러간다. 일어나야 될 시간에 자는 자는 죽음이 덮어 죽음의 잠을 자는 자다.

<2011년 11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명을 관리할 때는 사회와 주변 인물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해야 된다. 자기 일생에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하여 그 한 명을 구원하고 관리한다고 귀히 생각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2. 전도한 생명의 생활 터전에 가서 완전히 봐야 된다. 어떤 곳에서 사는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알아야 잘 관리해 줄 수 있다.

3. 힘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힘나게 실제로 힘이 나는 것을 해 줘야 된다.
4.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못 하면서 자기 꿈을 이루려고만 한다.
5. 관리는 처음에 세 겹 줄이 되어 해 주다가, 본인이 깨닫고 알면 직접 실천하게 하면서 관리는 두 겹 줄로만 해 주면 된다.
6. 주님과 연결해 주는 것이 최고의 관리다.
7. 수료 후 재교육을 시켜야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
8. 수료는 전초한 것에 불과하다.
9. 재교육까지 받았어도 실천 앞에는 하나의 전초에 불과하다.
10. 인생들은 자기가 좋아서 살아가는 삶이 곧 인생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11. 자기 생명을 지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은 자다. 사탄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보고 666 사탄의 인을 맞았다고 한다.
12.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다. 예정이다. 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선이 존재하지 못한다. 악이 선을 멸하고 없애기 때문이다.
13. 길은 두 가지다. 멸망으로 가는 영원한 고통의 길과, 생명으로 가는 영원한 기쁨의 천국길이다.
14.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심판하면 알고 선을 따라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셨는데도 또 멈칫거리면서 선을 따라가지 않는다. 역시 이런 자들은 우물쭈물하다가 악으로 가기 쉬워 결국 그 육과 영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
15. 예수님은 어떤 개인에게 할 말이 있으시면 옆에 가신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할 말을 못 하시고 조건이 될 때까지 하루든, 일주일이든 옆에서 기다리신다. 그러다가 때가 지나면 그냥 지나치기도 하시고, 조건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할 말을 전해 주시고 역사하기도 하신다.
16. 평소에는 예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보통으로 듣고 알다가도 자기가 환난을 당하면 다 기억하고 믿고 주님을 찾는다.

<2011년 11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고생하며 가는 것이다.
2. 과정이 아니다. 목적을 향해야 된다.
3. 고통과 함께 가야 갈 수 있다.
4. 편안하면 생명길은 못 간다.
5. 쉴 곳과 놀 곳이 많은 길은 쉬고 노느라고 제 갈 길 목적지를 못 간다.

6. 편안한 잠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제시간에 못 일어난다.
7. 춥고 배고프고 새우잠을 자던 자만 일찍 깨어 새벽길을 떠난다.
8. 마음을 거둬 거스르게 하는 자는 왕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9. 일을 맡은 자는 일을 맡긴 자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10. 주 앞에 마음을 비워야 주가 역사하신다.
11.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물 찬 그릇이다. 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후에 고인 물이 썩듯이, 자기 주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더럽힌다.
12. 주 앞에 마음을 비워라.
13. 자기 주관이 꼭 차 있는 마음 그릇이면, 주님이 오셨다가도 그냥 가신다.
14.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고로 네 마음을 비워라.
15. 그릇은 자기 마음이고, 그 마음 그릇에 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자기 생각이다.
16.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담는 것이다.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
17.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담으면 자기 세계만 운행하게 된다.
18. 자기 마음에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생각을 담지 않으면 구원도 희망도 없다.
19. 마음 그릇을 주 앞에 온전히 비우는 단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첫 단계다. 그 마음에 주님 생각을 담아야 육계를 벗어나 영계로 간다.
20. 자기 마음을 비운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아담과 하와도 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고 행하여 타락되었다. 주님 마음을 가지면 타락되지 않는다.
22. 자기 마음의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는 자는 주님도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생각을 주지 않으신다.
23.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을 담고 있는 자는 평생 자기 생각만 행하다가 죽는다. 고로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매일 자기 길을 가고 있다.
24.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에 담겨져 몸이 행하게 된다.
25. 주님을 위해서, 주님 생각을 담기 위해서 자기 마음 그릇의 자기 생각을 버리고 비워야 된다.
26.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마음을 받기 위해 마음 그릇을 비운다.
27.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위해 마음 그릇을 비워 놓고 그의 생각을 자기 마음 그릇에 담는다.

28.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평생 자기 생각만 행하게 된다.

29. 자기 생각대로 행해 놓고 잘 안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했는데 왜 이곳에 와 있느냐? 내가 왜 이같이 됐느냐?” 한다. 자기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이다.

30. 매일 자기 마음의 자기 생각을 비우고, 주님께 영원한 주님의 생각을 달라고 간구하여 주의 생각을 확실히 확인하고 행하여라.

31. 계속 자기 생각대로 하면 주님은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자를 은밀히 부르시고 주님의 생각을 주시어 그로 중심을 이루며 뜻을 펴신다.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같이 역사를 펴신다.

32. 자기 생각을 행하면 과정에서도 결과에서도, 자기에게도 모든 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33. 자기 생각대로 하면 주님도, 그 일을 맡긴 자도 심기가 상하여 그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상한다.

34. 주님의 생각은 희망의 실체다. 그러므로 행하는 대로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져 실체가 된다.

35. 자기 생각대로 계획해 놓고 주께 자기 생각을 말하면, 이미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말하니 주님이 맞다고 대답하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역시 자기 생각대로 행한 자다.

36. 절대 주님 생각대로 하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겠다고 결심하여라. 그러면 주님이 그 생각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생각을 주시어 실천하게 하신다.

37. 주님은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주어 실천하게 하신다.

38. 깨끗한 마음, 꺼림이 없는 마음을 가진 청결한 자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각을 행하신다.

39. 주님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겸하여 행하는 자를 통해서는 주님의 뜻과 생각을 행하지 않으신다.

40.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에게 휩쓸려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41. 자기 생각이 보이면 주님은 사라지신다.

<2011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42.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착각한다.

43. 주님의 생각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먼저 확인하고 판단하고 행하여라.

44. 주님은 “나의 생각이 이러하다.” 하고 거의 말씀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생각을 알고 행하면 도우시고,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돕지 않으신다. 이를 보고 판단하여라.

45. 자기 생각대로 좋아서 행해 놓고 심판 날에 주께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로구나.” 하면 “언제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나이까?” 한다.

46.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지,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는지 100% 주님께 확인해야 된다. 고로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여라.

47.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
48. 자기 생각대로 하던 자는 주님의 생각을 주면 이해를 못 한다. 이는 평소에 주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기에 주님의 생각을 몰라보기 때문이다.
49. 주님은 평소에 주님의 생각대로 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른다.
50. 주님은 많은 자들 가운데서 평소 주의 생각대로 행하여 주의 뜻을 맡긴 자에게 은밀히 부탁하신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이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다.
51. 선생도 평소에 나의 생각대로 행한 자가 누구인지 나만 알기에 내 생각대로 행하여 나의 일을 맡긴 자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다른 자를 통해서 행한다. 이는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다.
52. 자기 생각대로 하면 사탄이 따르게 되어 사탄의 생각을 이룬다. 또한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못 이룬다. 고로 주님은 다른 길로 뜻을 이루신다.
53. 자기 생각은 자기 길로 가게 한다.
54. 주의 생각은 주의 길로 주와 함께 가게 하고, 자기 생각은 자기 길로 홀로 가게 한다.
55. 자기 생각으로 하면 자기는 좋아도 주님은 마음이 상하신다. 그 상한 마음을 자기 생각대로 한 자를 통해 풀 수 없으니, 주님은 주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를 통해 행하여 상한 마음을 푸신다.
56. 자기 생각대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
57. 매일 사사건건 주님의 생각대로, 사명을 준 자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
58. 주의 생각대로 한 자만이 사명도 오래 가고, 큰일도 자꾸 맡아서 하게 된다.
59. 주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걱정되어 더 맡길 일도 안 맡기고 다른 자에게 맡기신다.
60.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신다.

<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61. 좁은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넓은 생각대로 행하니 좁은 지옥 같은 삶이 넓은 천국같이 되었다.
62. 자기 생각이 좁은 대로 사니 주님의 넓은 생각대로 축복해 주지 않으신다.
63. 좁은 내 생각을 마음에서 비우니 주님은 넓은 마음을 주시어 좁은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설명> 좁은 방에 서류가 가득해서 앉아 있어도 다리를 뻗지 못하고 곤고하게 살았다. 새벽에 내 생각을 비우니 주님께서 이에 대한 잠언을 주시며 주님의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 서류를 천장까지 한 줄로 쌓게 하셨다. 그렇게 하니 마치 넓은 집에 이사 온 것 같았다. 평소보다 넓이 40cm, 길이 180cm가 더 넓어졌다. <삽화> 정리 후 천국 / 정리 전 지옥 편지 한 장만 더 와도 방이 좁다. 그래서 답장을 쓴 편지는 바로 찢어야 한다. 방이 좁아 주님이 오셔도 서 있다가 가셨는데, 이제 앉았다가 가신다고 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 방을 안 비우면 주님은 서 있다 가신다.
64. 차원을 높여라. 자기 마음을 비워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으로 차원을 높인 것이다.

65. 자기 마음 방에서 자기 생각을 안 비우면 주님이 오셨다가도 서 있다가 그냥 가신다.

66. 선생이 사명을 준 자도 그 마음 방에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좁아서 주님도 선생도 가서 서 있다가 그냥 온다. <삽화> 자기 마음 방에 자기 생각 채운 자 자기 마음 방에 자기 생각 비운 자

67.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을 항상 비워야 주님이 오셔서 마음 방에 들어와 대화하신다.

68. 자기 주관, 자기 의견,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사상 모두 다 온전히 비우기 전에 주님은 안 오신다. 오셔도 왔다가 그냥 가신다.

69. 자기 주관,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사상, 자기 중심을 비우지 않으면 영계에 가든지 육계에 있든지 늘 자기 생각으로 보고 느끼게 된다.

70. 영계에 가서도 오직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봐야 제대로 본다.

71. 자기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히 전달된다.

72.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비우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과 주님 생각이 합류되어 자기 생각이 반영된다.

73.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은 자는 마치 '자기'라는 컵 안의 물을 비우지 않은 자와 같아서 주님이 그 마음에 주님 생각을 부으시면 혼돈되어 다른 생각이 되어 버린다.

74.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의지를 비워라.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여 자기 마음을 깨끗이 비워라. 그래야 주님이 온전히 오신다.

<2011년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75. 주님 앞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이 정말 어렵다.

76.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의지로 지금까지 살아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에 세뇌되고 습관되고 중독되어서 자기 마음을 비우기가 참으로 어렵다.

77. 자기 마음에서 자기 생각을 비우고 주님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바로 주님이 임한 것이다.

78.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자기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것은 보다 쉽다. 그러나 생활하고 무엇을 행할 때는 자꾸 자기 생각이 작동되어 자기 생각이 안 비워진 채로 행하게 된다.

79. 처음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다가도 조금 가다 보면 또 자기 생각으로 행해지게 된다. 이는 수십 년씩 평소에 자기 생각대로 행해 왔기에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80. 주님과 연속해서 수신하고 송신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되게 된다.

81.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기 마음을 버리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남기는 이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행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이 중심이 되어 행하게 된다. 고로 매 시간, 매 분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행해야 된다.

82. 자기 마음인지, 주님의 마음인지 분별해야 된다.

83. 자기 생각과 마음을 버리는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84.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면 자기가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된다.
85. 자기 생각으로 살면 영원한 세계를 얻지 못하여 남는 것이 없다.
86.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자기 영에게 영원히 남아지게 된다.
87. 자기 생각대로 먼저 결정해 놓고 주께 물으면 절대 안 된다.
88. 자기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자기에게 일을 맡긴 자와 주님께 의논하고 행해야 된다.
89. 먼저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물으면 절대 안 된다.
90. 점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점점 다른 길로 가게 되니,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 핵이다.)

<2011년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손으로 할 일을 못 하니 발로 손이 할 일을 하고, 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손으로 발이 할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2. 장애인들은 장애는 있어도 할 일은 하고 살아간다. 지체가 온전해도 할 일을 못 하는 자는 장애인만 못한 자다.
3. 몸이 갇혀 입으로 시대 말씀을 못 전하니 글로 써서 시대 말씀을 외치고, 몸이 갇혀서 못 하니 내 심정을 가진 자의 몸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한다.
4. 복음으로 갇힌 몸, 입으로 직접 못 외치니 내 영이 가서 외치고, 육의 몸이 갇혀서 못 하니 영의 몸이 가서 내 심정을 가진 자의 몸을 쓰고 한다. 육의 몸이 갇혀도 할 일을 한다.
5. 육의 몸에 모든 지체가 있는데도 제 할 일을 못 하는 자는 장애인과 같다.
6. 육의 몸이 넓은 세상에 자유롭게 사는데도 제 할 일을 못 하는 자는 마음, 생각, 정신 장애인이다.
7. 넓은 과수원이 있으면 수십 그루, 수백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어 거둬들이며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 넓은 과수원에 과일나무를 한두 그루만 심어 놓고 거두며 평생 만족하고 산다. /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마치 과수원에 한두 그루의 과일나무만 심어 놓고 만족하며 살듯, 무한한 잠재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안타깝게 살다가 끝난다.
8.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이 평생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잠재 능력을 얼마나 개발하고 노력하며 사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다.
9. 어떤 사람은 한 시간 해 놓은 일이 다른 사람이 100년 한 일보다 더 많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 능력과 달란트를 개발하고 자기가 노력하여 행했기 때문이다.
10.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소질과 재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재산이다. 개발하고 노력하면서 써야 된다.
11. 인간의 뇌의 생각은 인간으로서 신의 경지에 이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12.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같이 행하면 1분만 행해도 일반 사람이 100년 해도 못 하는 일을 한다.

13. 하나님이 주신 시대 사명의 일은 그 시대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행한 일을 다 합쳐도 못 따라간다.

14. 자기가 게을러서 정신 장애인, 마음 장애인 되어서 인생을 썩힌다.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인생, 구세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신이 되어 살아야 된다.

16. 자기 인생 몰라서 망치며 살고, 그로 인하여 영혼까지 영원히 망하게 한다.

17. 인생, 구원받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살고 끝나면 짐승의 삶이나 다름없다. 차라리 짐승이 되어 살고 끝나 버리는 것이 낫다. 인생의 결국을 아는 자는 다 동일한 말을 할 것이다.

18. 인생, 못 사는 대로 끝나고, 잘 사는 대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영원한 고통의 세상, 혹은 영원한 기쁨의 세상을 앞에 놓고 지구 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19. 인생이 죽는 날은 마치 태아가 엄마의 태 속을 벗어나서 세상에 태어나듯이, 인간의 육신은 죽어 태반같이 땅에 묻고, 그 영은 지구 태를 벗어나서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살았던 행위대로 영원한 고통의 세계 쪽이나, 혹은 영원한 기쁨의 세계 쪽으로 가게 된다.

20. 철창 속의 하루는 인생의 1년같이 귀하다.

21. 가만히 있으면 철창 속은 지옥이다. 주님의 몸이 되어 육의 세상을 떠나 영의 세상에 묻혀 일하면 바깥세상 못지 않게 귀한 시간을 쓰면서 지상천국같이 보람차게 살아간다.

22. 인생은 '환경'으로 살지 않고 '생각'으로 살아간다.

23. 인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문제다.

24. 인생은 육신의 삶과 영혼의 운명을 좌우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25. 내게는 매일 생명의 말씀을 캐내는 것이 매일 금을 큰 산만큼 캐내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26. 인생이 온 세상에 있는 금덩어리를 다 받고 평생 즐겁게 살아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허무하고 영원토록 이를 갈며 살아야 된다. 고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쁨 속에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자가 매일 금을 산만큼 받는 자보다 낫다.

27.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받아 보니 자기만 원망하고 자기만 저주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았기에 그 영혼이 지옥에 왔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뜨거운 물을 들고 가다가 자기가 옆질러서 온몸을 데면 자기가 그같이 했으니 자기를 욕하고 자기만 원망하는 격이다.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가도 자기만 원망하고 자기만 욕하고 저주한다.

28. 지옥은 원망의 세계다.

<2011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29.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 줘도 자기 영혼을 지옥에 안 가게 해 준 자가 그에게 최고 위대한 일을 해 준 자다. 금을 큰 산 1000개만큼 준 자보다도 더 큰일을 자기에게 해 준 자다. 고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 위대한 일을 해 준

자는 구세주 예수님이시며, 주님이 보내신 전도자이며, 자기를 신앙으로 키워 주어 지옥에 갈 운명인데 지옥에 안 가게 해 준 자다.

30. 네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돕고 이끈 자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31. 만일 지옥을 돈을 내고 안 갈 수 있다 하자. 자기가 지구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다 주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라. 알몸으로 거지같이 되어 살더라도 그렇게 한 자가 최고 잘한 자다.

32. 이렇게 하면서라도 지옥은 꼭 가지 말아야 될 곳이다. 맨 몸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해도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는데, 모르니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자가 무지하여 하루하루 영원히 고통 받는 길을 가고 있다.

33. 지옥에 가는 영혼을 따라 지옥 불에 들어가서 세상 시간으로 10초 후에 보았다. 그 영혼이 씻물이 끓는 불못 속에 들어가서 알 수 없는 형체로 변했고, 세상 시간으로 10초 동안 받는 고통은 지구 인생 모두에게 나눠 줘도 못 견디는 고통이라서 혀를 깨물게 되었고 괴로워서 금방 눈이 튀어나와 악마 얼굴이 되었고, 그 행동은 지옥 고통의 여러 가지 행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 고통 소리는 너무 괴로워 지옥을 울리고 있었다.

34. 지옥의 고통을 세상 단어로 표현한 사람은 없었다.

35. 지옥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는 자가 없다.

36. 지옥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가는 곳은 아니다.

37.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말과 행실로 통회 자복하면, 지옥은 너무 괴로운 곳이라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의를 행하게 하여 구원받게 해 주신다.

38. 지옥에 간 자가 말하기를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지옥에 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 했다. 그의 죄 기록을 보니 죄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제일 큰 죄를 지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육신을 창조하시고 자기 영혼을 창조하여 천국에 오라고 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연고다.

39. 이 죄만 안 지었으면 지옥에 안 갔다.

40. 자기 죄를 온전하신 주님께 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지옥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가기 위해 할 일을 하는 자다.

41.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된다. 회개하여라. 회개하면 지옥을 버리게 된다.

<2011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앞의 시간을 제대로 지켜야 뒤의 시간도 제대로 지킨다.

2.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니 다음 단추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게 되듯이, 구원역사도 그러했다.

3. 초림 때 구원받을 자들이 제대로 못 하여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희생하여 그 몸을 내어 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셨다. 재림 때도 또 그같이 되었다.

4. 앞의 시간을 못 지키니 뒤의 시간도 밀려나서 못 지키게 된 것이다.

5. 고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잘해야 된다.

6. 처음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그다음 일도 차원을 높여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된다.
7. 구원역사는 하늘과 땅의 역사다. 그러나 구원역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를 보면 하늘 편인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사명자는 잘했다. 그러나 항상 구원받는 자들이 땅에서 책임을 못 했기에 구원역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8. 영과 육은 하늘과 땅이다. 항상 육이 문제다. 육이 문제면 영도 문제다.
9. 육은 '길'과 같고 영은 '사람'과 같다. 길이 잘못되었을 때 길을 가는 자도 잘못 가게 된다. 육의 현상이 영의 현상이다.
10. 육이 잘해야 영이 잘된다. (왜냐하면 육의 행실에 따라 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11. 자신의 육이 잘되려면 육이 영에 속한 일을 잘해야 된다. 기도하고 마음을 잘 먹고, 생각을 바로 하고, 정신을 똑바로 하고 행해야 된다.
12. 인간은 자기가 알고 행하여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몰라서 못 하여 불행하게 되기도 한다.
13. 작은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에 대처해야 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14. 자기 연구, 자기 만들기다. '자기 연구, 자기 만들기'란, 자기 마음 그릇에 인간의 생각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담고 그 생각을 담고, 몸은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2011년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5. 인간 스스로는 미약하고, 처참하고, 가련하고 땅을 면치 못한다.
16. 인생 스스로는 뛰어도 날아도 땅을 면치 못한다.
17. 인생, 너는 이치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떠서 먼저 너를 알고 나 예수를 알아라.
18. 자기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알면 인생을 그같이 살지 않는다.
19. 인생, 이같이 사나 저같이 사나 한세상은 산다. 하지만 주 없이는 영원한 세상을 존재시키지 못한다.
20.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오르지 못한다.
21. 인생, 그대로 땅만 위해 육만 위해 살면 하나의 씨앗에서 끝난다.
22. 마치 씨앗을 땅에 뿌리면 뿌린 것이 연속되어 결실로 거두듯이, 인생이 영을 위해 주님과 같이 살면 자기 영을 영원불변의 영이 되게 한다.
23.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위함이다. 구원자가 손 떼면 끝난다.
24. 구원받을 자가 구원을 위해 회개의 조건을 세워야지, 다른 조건을 원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25. 주가 구원하실 때 구원받을 자는 조건은 세우되, 스스로 하늘에 오르는 일은 하지 못한다.
26. 구원자가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옆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때 지나면 떠나신다. 그때는 자기가 1000

리, 10000리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

27. 처음 기회의 때는 주님이 와 주시고, 다음 기회의 때는 본인이 쫓아가야 된다.

<2011년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28. 인간은 무지한 존재다.

29. 인간은 몰라도 고생하고 망해서 그렇지, 살기는 한다.

30. 스스로 인간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는 자가 가르쳐 주어 알 때 한계선을 넘어 알게 된다.

31. 지구상에 사는 인생들 모두가 총력을 다해 아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은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만이 아시는 일이다.

32. 알면 할 수 있다.

33. 알면 쉽다.

34. 모르면 하되, 제대로 하지 못한다.

35. 아는 자만 날고, 모르는 자는 기어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기만 한다.

36. 인생은 신과 같이 할 때 날고, 사람과 같이 할 때 뛰고, 자기 혼자 할 때 기어간다.

37. 행해야 몰라도 깨닫게 된다.

38. 알아야 자신 있고, 건강해야 자신 있다.

39. 고장 나면 알아도 못 간다.

40. 아는 자는 가면서 뛰고, 모르는 자는 제자리에서 뚫다.

41. 모르는 자는 몰라서 울고, 아는 자는 행하지 못해서 운다.

42. 주의 지혜를 받아야 알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행할 수 있다.

43. 인생들, 육의 눈으로 보아도 확실히 모르고 살아간다.

44. 영의 눈, 마음의 눈, 심령의 눈으로 봐야 확실히 알고 살게 된다.

45. 육의 눈으로 본다고 영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영의 눈, 심령의 눈을 떠서 봐야 안다. 영의 눈, 심령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영의 귀, 심령의 귀를 열지 않으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46.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다르고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듯,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심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 영의 눈, 심령의 눈으로 봐야 확실히 안다.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열매는 끝에 있기 때문이다.
2. 미련한 자는 판단하지 못하고 열매가 열지도 않는 나무를 두고 갖은 노력을 하며 정성껏 가꾸고 퇴비한다.
3.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사람은 자기 삶의 열매를 먹고 산다.
4. 자기 삶이 그대로 자기 열매를 맺게 한다.
5. 나무는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듯이, 사람도 행위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즉시 안다. 자기 행위의 열매다.
6. 영적으로 보면 지난날에는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어떤 사람인지, 그 열매를 보고 안다.
7. 열매를 보고 심판하고 축복한다.
8. 한 번 가시나무 못된 나무는 평생 가시나무 못된 나무다. 한 번 좋은 나무는 평생 좋은 나무다.
9. 사람은 좋은 나무도, 나쁜 나무도 자기 행위에 따라 날마다 변하게 만들 수 있다.
10. 자기가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11. 마음은 꽃이요, 행실은 열매다.
12. 더 좋은 열매는 더 좋은 행실이다.

<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3. 새벽부터 씨를 뿌려 종일 가꾸고 해가 저물기 전에 거두는 인생이다. 하루 삶의 열매다.
14. 늦게 뿌리면 때가 지나서 클 시간이 없어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15. 부지런한 자는 매일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데, 게으른 자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둔다.
16. 빠른 자가 1등 하듯이 인생도 빠른 자가 매일 삶의 우승을 한다.
17. 평생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 정신으로 시간을 잡고 쓰게 된다.
18. 시간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적당하다. 인간의 정신은 빛보다도, 영보다도 빠르다. 그러나 게을러서 자기 정신을 쓰지 않고, 정신을 쓸 줄 모르면 시간을 뒤따라가게 된다.
19. 시간은 한 시간에 한 시간밖에 못 간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빛'으로 150억 년을 가야 된다. 그러나 '정신'은 일순간에 간다. 그런데 정신이 게으른 자는 시간보다 늦게 간다.
20. 정신은 영체보다 빠르다. 정신이 게으르면 몸이 게으르다.
21. 빛보다도 영보다도 빠른 '정신'을 가지고 제때 행하면 다 할 수 있다.

22. 죽어 있는 정신은 1년이 가도 5리도 못 간다. 그러나 살아 있는 정신은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초면 왔다 갔다 한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으로 가려면 150억 년 걸린다. 이 거리를 심령이 살고 영이 살아 있는 자

는 정신으로 1초 만에 왔다 갔다 한다. 왜 이런 엄청난 정신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이런 정신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

23. 살아 있는 정신을 가지면 할 일이 번뜩이며 생각나고 바로 행해진다.

<2011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24. 하나님께 물었다.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려면 빛으로 150억 년을 가야 합니다. 우주는 참 큼니다. 사람은 그곳까지 안 가고, 우주를 다 쓰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도 크게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지구의 인생 대표로 묻습니다.” 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 가도 사람이 그 영향을 다 받고 산다. 또한 나 여호와를 위해서 그같이 크게 만들었다. 내 마음에 만족하게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창조했노라.” 하셨다.

25. 매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온 지구를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경배드렸더니, 성삼위 하나님은 대우주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셨고, 왜 그렇게도 우주를 크게 만들었는지 깨닫게 해 주셨다. 인간이 우주에 안 가도 그 영향을 다 받고 살고 있으며, 우주를 그같이 크게 안 만들었으면 지구가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26.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주의 거리를 보니 정말 우주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탄했다. 이에 하나님은 “너희가 보기에 크지, 전능자가 보기에 크지 않고 적당하다. 내 마음에 만족하도록 만들었다. 우주는 사람만을 위해 만들지 않았다. 창조자가 쓰기에 맞도록 창조했으며, 창조자의 마음에 만족하게 만들었다. 깨달아라. 알아라. 월명동도 쓰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했지만, 구상한 자의 마음에도 네 마음에도 만족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셨다. 이와 같이 우주를 인간이 눈으로 보기만 해도 피곤하도록 크게 만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27. 성삼위 하나님 앞에 저마다 자기만 만족하게 행하고 말면 하나님과 주님께는 만족이 없고 재미가 없어 사랑이 불타다 말고, 일의 불이 타다 말고, 좋은 작품이 되다가 마니 희망이 없고 기대가 어긋나서 실망하신다.

28. 자기만족 사랑이냐?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사랑이다. 그리해야 사랑의 불이 활화산같이 펄펄 끓고, 돌과 흙이 화산 불물이 되어 흘러내리듯 사랑의 물도 강물같이 흘러내린다.

29. 자기만족 사랑은 새 역사를 폭발시킬 수 없다.

30.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만족하시는 사랑을 해야 새 역사 성약역사를 폭발시켜 활화산이 타듯 역사가 타올라 인생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성경 말씀대로 체질이 풀려서 1000년 성약역사의 강이 흘러간다.

31. 자기만 만족하는 사랑을 하고 자기만 만족하게 일을 하면 따르는 자가 없다. 사랑도, 일도 전능자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 한계는 ‘끝까지’다.

32. 사랑도 자기만족의 사랑에서 끝나지 말고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해 주어라. 상대는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해 주는 사랑을 받으면 따라가게 된다.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실 이는 주님뿐이다.

33. 주님을 따라서 모두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하늘 사랑을 해 주어라.

34. 토끼라도 치타가 만족할 때까지 뛰면, 치타는 늘 토끼와 함께 사냥을 다닌다.

35.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뛰어 보고 일해 보아라. 주님이 만족하시면 “그만해. 됐어.” 하신다.

36.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고 얼마나 했는지 가서 보니, 눈에 일한 것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물으셨다. 그가 말하기를 “내 마음에 만족하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랑했다.

37. 월명동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쌓을 때마다 주님은 만족하시냐고 물어보면서, 주님이 만족하신다고 하면 다음 돌을 쌓았다.

38. 돌을 쌓아 놓고 모두 한꺼번에 쳐다보니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했다.

39. 어떤 것을 보아도 자기 눈에 만족하기보다, 주님 눈에 만족하고 주님 마음에 만족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여 수시로 쳐다보신다. 고로 신랑 되신 주님께 묻고 행하여라.

40. 기도도, 찬양도, 말씀 강의도, 전도도, 전초도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해야 된다.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41.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행하여라.

42. 자기 육신과 마음의 만족보다 자기 영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

43. 과일나무가 만족할 때까지 퇴비해야 된다. 자기만족은 기껏해야 4번의 삼태기만큼이고, 과일나무의 만족은 4번의 리어카만큼이다.

44. 과일나무가 만족하게 퇴비해야 열매가 입이 찢어지도록 크게 열린다.

45. 행한 대로 만족하게 얻는다.

46. 조잡스럽게 행하고서 웅장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47. 사골 곰탕을 끓일 때도 오랜 시간 끓여야 국물이 우러난다.

48. 신앙생활을 할 때 3분, 5분 라면 삶듯 행하면 라면 인생 되고 만다.

49. 온종일 해 대야 끝장나고 한 작품이 나온다.

50. 무릎으로 기어가서 까마득한 정상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데,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도 지루하다 하품하고 몸 돌리고 지겹게 들을 것이냐.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가도 지루하다고 그곳에서 나와 뜨거워서 뛰는 곳으로 가게 된다.

51.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겹다고 하면, 행할 때는 몸부림인데 어떻게 행하면서 고생하더라도 생명길을 가겠느냐.

52. 정신이 살고 심령이 살고 영이 살아 야무지고 보람차게 가야 된다. 그래야만 주님이 지난날에 못 한 것에 대한 마음을 푸시고 누그러져 눈을 돌리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같이 동행하고 대화까지 해 주신다.

53. 조급하다고 대강대강 하지 말고 한 번 할 때 확실하게 하여라. 다시 하려면 하대명년이다. (* 하대명년 :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리느냐.’라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시켜 냈는데 도대체 결과가 안 오니,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를 모를 때 쓰는 말)

54. (주 편) 내가 못 하면 누가 하느냐. 내가 해서 될 일이면 내가 이토록 애간장을 태우겠느냐.

55. (주 편) 내가 안쓰럽게 쳐다봐도 네가 해야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야 후에 가서 영원 인생 살면서 너와 내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사연 깊이 세상 이야기를 하게 된다.

56. (주 편) 사연이 없으면 사랑하는 자라도, 종일 쳐다봐도 할 말이 없어 병어리 삶을 살게 된다.

<2011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57. (주 편) 내가 떠나면 언제 오겠느냐. 물어도 실망할까 봐 말 안 한다. 나와 심정 일체 되어서 사는 자는 묻지 않고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나의 심정 알고 나의 뜻을 행할 뿐이다. (깊은 잠언)

58. (주 편) 누구든지 떠날 날이 가까우면 마음속 깊이 묻어 놓은 말이 나온다.

59. (주 편) 사랑하는 자가 오고 가도 모른다면, 마음의 소경이다. 마음의 눈이 넓은 세상을 쳐다보며 자기 좋은 것만 바라보니 나를 볼 수 있겠느냐.

60. (주 편) 사랑하는 자가 간 후에 소경이 눈을 뜬다면 애간장만 타는 것이다.

61. (주 편) 함께 있을 때에 끝자락에 미련 없이 해야, 보낸 후에도 기뻐하고 보람 있게 증거하며 살게 된다.

62. (주 편) 처음에도 중간에도 잘하다가 끝에 가서 못 하면 너도 나도 아쉬움 속에 눈물짓는다.

63. (주 편) 잘해 주고 보내도 떠날 때는 눈물인데, 내게 못해 주고 보내면 가슴팍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이다.

64. (주 편) 처음과 끝이다. 지난 과거에 못 했어도 기회는 이제 끝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끝마무리를 잘할 때다.

65. (주 편) 곡식도 끝여물이다. 과일도 끝 익음이다. 일도 끝마무리다. 신앙도 끝까지다. 끝에 최고의 힘을 다해 하고 쉬는 것이다.

66. (주 편) 사탄은 끝을 기어이 무너뜨리려 한다.

67. (주 편) 하늘 수는 완전이다. 완전하게 해야만이 사탄을 이기고 사탄 주관권을 통과한다. (하늘 수는 '7'이다. 끝까지 하여 사탄 수 '6'을 통과해야만 완전한 단계에 이른다.)

68. (주 편) 사탄들은 사랑, 이성, 돈, 물질, 명예 등 네가 좋아하는 것을 다 갖다 놓고 기다린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물리치고 비웃고서 나와야만 사탄이 실망하고 포기한다. 사탄 주관권을 벗어나 내 주관권까지 끝까지 오면 그보다 내가 예비한 것이 더 많으니 나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게 된다.

69. (주 편)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이것저것 깊이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

<2011년 11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70. (주 편) 이긴 자만 휴거된다.

71. (주 편) 이긴 자는 자기를 이기고, 상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72. (주 편) 나와 같이 해야 이긴다.

73. (주 편) 너 혼자 한 일은 별 볼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 않느냐.

74. (주 편) 내 자랑을 해야 듣는 자가 희망 속에 듣게 된다.

75. (주 편) 사람들은 세상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부인 자랑, 자기 행한 일 자랑, 별의별 자랑 다 하면서 인생의 해를 넘긴다. 그러나 들을 것이 있느냐. 내 이야기를 해야만 내 마음이 가고 내 눈이 간다.

76. (주 편) 나와 같이 한 것만이 자랑거리다. 내 증거가 위력 있어 사람들이 그 증거를 듣고 나를 따라온다.

77. (주 편) 개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만, 벌과 꽃나비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 온갖 짐승들이 자기 자랑을 하지만, 호랑이와 치타와 코끼리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겠느냐.

78. (주 편) 호랑이가 말하고 행한 것을 토끼가 듣고 와서 말하면 모두 듣고 긴장하고 좋아한다.

79. (주 편) 나 예수가 말한 것은 어린 자가 말해도, 이름 없는 자가 말해도 모두 모여들어 귀히 듣고 행하여라. 내가 그를 통해 무슨 말을 할지 인생들이 어찌 알겠느냐.

80. (주 편) 내 말씀을 듣는다면 듣는 자가 행할 것을 말해 준다. 나의 말을 명심하고 이 시대 끝자락을 살아야 된다.

81. (주 편) 여기까지 한 것이 잠언 끝자락까지 한 것이다.

82. (주 편) 여기까지 한 것이 오늘 내가 만족할 때까지 잠언을 쓴 것이다. 전체를 한 눈에 읽어 보면 끝자락까지 꼭 써야 되는 것을 알 것이고, 내가 만족할 때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알 것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잠언)

83. (주 편)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도록 잠언을 쓰는 것이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한 것이다.

84. (주 편) 네 선생은 나와 같이 끝까지 내가 만족하게 하고 만다.

85. (주 편) 나와 같이 해야 할 수 있다. 너희 선생도 처음부터 나와 같이 행하니 내가 구상을 주고 계시를 주어 이같이 할 수 있었다.

86. (주 편) 자기 혼자 하면 내놔도 주는 자가 없어 나오다가 만다.

87. (주 편) 푸짐하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아름답게다. 그래야만 내가 만족한다.

<2011년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혀 못 들어서 믿지 못하여 구원을 못 받지는 않는다.

2.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주시고, 혹은 만물을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복음을 전해 주신다. 자신이 안 믿을 뿐이다.

3.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여 안 믿을 뿐이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만한 정도의 복음은 다 듣게 해 주었고 깨우쳐 주었다.

4. 자신이 믿고자 할 때 믿어진다. 복음을 들어도 자기가 믿기를 싫어하여 안 믿는 것이다.

5.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조금 들었는데도 자신이 믿기를 원하여 믿게 되었다.

6.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지고 열심히 하게 된다.

7. 이미 충분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아는데도 자신이 잘 믿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8.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구원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지만, 자기가 믿고자 하는 마음에 따라 더욱 자기 구원의 운명이 좌우된다.
9. 똑같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 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며 믿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하며 안 믿는다. 자기 마음이 자기 구원을 좌우한다.
10.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전해 주어 믿게 해 주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거목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통으로 믿고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교회만 다닌다.
11.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자기 구원을 더 좋게 이루는 것을 좌우한다.
12. 복음을 약하게 들었느냐, 확실히 들었느냐에 따라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이 좌우된다. 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13. 처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주는 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자신이 배우고 깨닫고 힘을 얻고 자립하고 행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14. 처음에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여 주며 키운다. 그러나 크면 자신이 걷고 뛰고 먹고 입어야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의 삶도 그리해야 된다.
15. 복음을 빨리 들었느냐, 늦게 들었느냐에 따라 신앙의 성장에 차이가 많지만, 복음을 늦게 듣고 왔어도 자기 때에 와서 하니 자기 때에 부지런히 크면 충분하다.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

<2011년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6.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천층만층이다.
17. 뛰는 자는 걷는 자보다 앞서 간다.
18. 구원에 목적을 두고 자기를 희생하며 사는 자는 어디를 가도 신앙이 남들보다 앞질러 간다.
19.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며 사느냐, 육적인 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며 사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 하루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20. 목적을 확실히 아는 자는 확실히 모르는 자보다 더 빨리 가게 된다.
21.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확실히 알고 믿고 행한다면, 전심으로 행하게 되어 스스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22. 과연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많은 시간을 쓰고 인생을 투자하고 산다면 영과 육이 어느 정도나 잘되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뛰어들어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23. 세상을 위해 시간을 쓰고 인생을 투자하면 그만큼 잘되기도 하고, 혹은 투자한 만큼 날리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진정 시간을 쓰고 인생을 투자했다면 100% 확실히 잘되고 형통한다.
24.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쓰고 인생을 투자한 만큼 한 명도 빠

짐없이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해됨 없이 잘되게 해 주신다.

25. 행한 대로 받으려면 온전하게 행하고 끝까지 가야 된다.

26. 해가 떠서 질 때까지가 끝까지다.

27. 씨를 뿌려서 가꾸고 열매가 열리면 거둬들이고 먹을 때까지가 끝까지다.

28.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로 인하여 얻을 때까지가 끝까지다.

29. 한 생명이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생명이 커서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어 혜택을 줄 때까지가 끝까지다.

30. 날마다 씨를 뿌리고 가꾸면 매일 거두게 된다. 해마다 씨를 뿌리고 가꾸면 해마다 거두게 된다.

31. 자기 인생을 뿌릴 줄도 알고 가꿀 줄도 알고 거둘 줄도 알아야 인생 농사를 지으며 보람 있게 살게 된다.

32. 자기 인생의 때가 와서 한창 인생 농사를 지어야 할 때 편하게 놀고 먹기만 하고, TV와 인터넷 등 헛된 것에 빠져 정신없이 살아가고, 이성 사랑과 세상 사랑 등 여러 가지 헛된 것에 시간을 쓰며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없이 살아간다.

33. 인생, 어렸을 때부터 모르고 제 갈 길로 살아가니 클수록 더욱 푸짐하게 그릇되게 살아간다.

<2011년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34. 자기가 그릇되게 살아온 것이 버릇이 되고 체질에 배고 맛이 들어서 그것들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전통과 풍속이라 생각하고 미친 자들이 되어 올바르게 가는 자식들과 후손들을 그릇되게 가르친다.

35. 주님께서 생명을 인도하여 시대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하시건만, 기존의 신앙의 부모들과 형제들은 시대의 소경이 되어 혈기를 부리고 악평하며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억지로 옛 시대로 끌고 다닌다. 주님이 사탄들과 함께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보시고서 주님이 택하신 자를 정녕코 건져 주시고, 행한 대로 냉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36. 주님은 2000년 동안 기간을 주시며 할 만큼 다 해 주셨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 속에서, 뒤범벅 짬뽕 통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37. 시대의 소경은 살아 봤자 그 결과가 뻔하다.

38. 시대의 눈을 뜬 자는 어린아이라도 키워서 시대 주님의 뜻을 펴게 한다.

39. 시대의 눈을 뜬 어린아이가 기성 부모, 소경 부모 만나서 살아가니 보는 자도 안쓰럽고, 같이 사는 자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40. (주 편) 때가 되면 소경의 품을 벗어나니 어서 나 예수의 도를 배워 부지런히 전해 주며 행하여라.

41. 시대의 해가 지면 눈 뜬 자도 예전 같지 않고, 소경들은 이판사판 되는 대로 살 것이다.

42. 눈을 뜬 자라도 정신 안 차리고 살면 그 차원과 그 환경 그대로다.

43. 때가 되니 때를 따라 사람도 좋고 환경도 좋다.

44. 어려울 때 고통 받더라도 참고 견디고, 고통 중에 미래의 것도 배웠다가 좋은 날이 돌아오면 외치면서 쓰는 것이다.

45. 사명자가 할 일을 두고 장소, 환경 따지겠느냐. 아무 데서나 할 일을 하는 것이다.

46. 좋은 자리에서 놀다 오려다 온종일 좋은 자리만 찾다가 그냥 온다.

47. 비바람이 몰아칠 때 비바람을 맞아 가며 시를 쓰고, 환난 핍박 받더라도 쉬지 말고 갈 길 가며 외쳐야 가슴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서 외치게 되고, 그때 그 심정을 기록하여 모두 보게 한다.

48. 비바람과 눈보라 치는 환난의 때가 너를 향해 주려고 기다렸던 축복의 때이면 어찌하랴. 고로 장소, 환경 따지지 말고 항상 행해야 된다.

49. 환난, 핍박, 고통의 날을 빼면 섭리역사가 일할 날이 30%도 안 된다.

50. 낮만큼 밤은 있다.

51. 여름철에 어린아이에게 옛 뭉치를 주니 옛이 늘어져서 땅에 닿아 못 가지고 갔다. 추운 날 덜덜 떨 때 옛 뭉치를 주니 쉽게 가져갔다.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았다. <삽화>

52. 환난 날에 담대히 행하여라. 그때 주님이 더욱 함께하신다.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자세가 자기를 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

2. 자기 몸이 자기를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편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3. 자기 마음과 생각이 자기를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불평하게 만들기도 한다.

4. 자기가 게을러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하고 가난하게 만든다.

5. 자기가 부지런하여 얻고 부하게 되어 편안하게 산다.

6. 더 수고하고 고생하고서 더 편안함을 얻게 된다.

7. 신앙의 삶도 더 고생하더라도 수고하면 더 얻고, 마음도 육도 영도 더 편하게 살게 된다.

8. 육적으로 얻으면 육이 편안하고, 마음적으로 얻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영적으로 얻으면 영이 편안하다.

9. 힘들지만 하기만 하면 얻게 되고, 힘들다고 행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10. 누구든지 행하면 얻는다는 것을 알지만, 힘드니까 행하지 않는다.

11.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자기 현실과 미래의 편안함을 좌우한다.

12. 힘들어도 행하고 수고하여 편안하게 사는 것과, 행하기 힘드니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것 중 어느 편이 나은지 생

각해 보아라.

13. 힘들다고 의를 행하지 않고,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안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행하지 않다가 지옥에 가게 된다.

14. 고통을 받아도, 힘들어도, 고생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에 천국에 가게 된다.

15. 찬바람이 불지라도 눈이 내려 눈이 쌓이기 전에 무와 배추를 뽑아 들여야 겨울 동안 먹으면서 편히 지낸다. 힘들고 고생된다고 안 하면 겨울이 되었을 때 음식이 없어 힘들게 살게 된다. 추수 때 잠자는 자는 미련한 자다. (꿈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쓴 잠언)

16. ‘일을 안 하면서 편안’은 자기를 고생시키는 편안이다.

17. ‘일을 하면서 고생’은 자기를 편안하게 하는 고통이다.

<2011년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8. 주의 일을 해도 고생이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편안함이 온다.

19. 사람들은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이 오지?” 한다. 자기 일을 하더라도 고생이다. 일을 하면 세상 어느 누구라도 고통이 오기도 하는 것이다.

20. 자기 살 집을 지을 때 고생도 되고, 고통도 당하고, 힘도 들고, 몸부림도 있고, 갖은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한 번 집을 지어 놓으면 자기 일생 동안 그 집에서는 편히 살게 된다. 신앙의 일도 그러하다.

21. 일의 고통은 자기 희망을 이루게 한다.

22. 월명동 자연성전을 몸부림쳐 만들어 놓으니 우리 일평생 편히 쓰고, 후손들까지 편히 쓰게 되었다.

23. 힘들어도 고생되어도 매일 영생길을 가야 된다. <삽화>

24. 젊었을 때 편하게 길이 들어 산 자들은 후에 고생만 산처럼 쌓여 나이가 들어 그 산들을 넘으면서 살아야 된다. <삽화>

25. 보통 고생하며 일한 결과 보통 편안하고, 많이 몸부림치고 고생하며 일한 결과 천국같이 편안하고 즐겁다.

26. 영계는 크게 천국, 낙원, 선영계, 악영계, 음부, 지옥이 있다. 그러나 더 세세히 보면 그곳들도 수만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하고 고생하고 행하고 일한 대가로 간다.

27. 천국도, 지옥도 실상 자기 행위에 따라 간다.

28. 주님은 우리가 천국길로 가도록 매일 도우시고, 지옥길로 가는 자들을 보시고는 매일 그 길로 못 가게 막고 끌어 내신다. <삽화>

29. 하루를 살아도 수고하고 고생하며 일하면서 산 자는 하루 쓸 것을 충분히 얻고 산다.

30. 죽지 않을 만큼 잠자고, 죽지 않을 만큼 일한다. (무섭다.)

31. 짧은 인생, 세상에서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여 얻어야 욕이 평생 쓰고, 영이 영원히 쓴다.

<2011년 12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32. 젊었을 때 죽지 않을 만큼 잠자고, 죽지 않을 만큼 주의 일을 하여 얻은 것은 지금 수고해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 신령한 양식을 섭리사 사람 모두 먹고 쓰니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다. <삽화>
33. 젊었을 때 몸부림쳐 고생하면서 주님께 얻은 것을 나도 먹고 쓰고, 이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도 먹고 쓰니 행복하고 즐겁다. 이웃집, 건넌집, 기성들은 시대 하늘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허덕이며 심령에 가뭄이 들어서 영이 바싹 말라 길도 아닌 사망길을 가며 헤매고 있다. <삽화>
34. 젊었을 때 나만 고생한다고 울며 한숨 쉬며 하던 일들인데, 때가 되니 흉년 때 양식같이 쓰이고, 대가뭄에 댐의 물같이 쓰이고, 한겨울에 솜옷같이 쓰이고, 한겨울에 온돌 집같이 쓰인다.
35. 지금 내가 먹고 입고 편안하기만 하다면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의 후손들이 고생하고 편안하지 못하다.
36. 일할 것이 없는 자는 불행하고, 일할 것이 있더라도 고생된다고 안 하는 자는 그 역시도 불행하다.
37. 산 자만이 얻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태산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38. 주님과 같이 해야만이 능력으로 지혜로 희망차게 돌풍을 일으키며 할 수 있다.
39. 편하게 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도둑질을 해대고 사기를 쳐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며 사는 자들이 있다. 모두 전능자의 눈에 띄어 전능자는 그 대가로 사망의 선고를 내려 사망의 고통을 받게 하시고, 짐승 같은 고통을 받게 하신다.
40. 조폭, 깡패, 무력자들의 그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매일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시어 세상 법에 부치시고, 하늘 법에 부치시어 그냥 두지 않으신다.
41. 전능자의 눈을 피하고 전능자에게 숨기고서 행할 자는 지구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선과 악의 그 대가를 받지 않을 자는 이 세상에도, 영의 세계에도 단 한 명도 없다.
42.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 자체가 고통을 주게 창조하셨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 자체가 축복을 주게 창조하셨다.
43. 악은 악이 심판하고, 선은 선이 축복을 준다.
44.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가더니만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말았다.
45. 선한 생명길은 직진길이고, 악한 멸망길은 그 길이 험하고 구부러진 길로서 자기 죄 보따리를 지고 끝없이 가야 된다.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불사르지 않으면 지옥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불에 자기 죄를 태워야 된다.
46. 지옥은 네 근처에 있다. 가기 쉽다. <삽화>
47. 천국은 멀리 있다. 고로 네 인생 일찍부터 서둘러서 재촉하며 가야 갈 수 있다. <삽화>

<2011년 12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산 평을 손으로 잡듯이, 정한 새벽 시간을 꼭 잡아서 기도하자. 나와 대화다.

2. 말로 마음이 만들어지고, 행함으로 실체가 만들어진다.
3. 주께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매일 배워라.
4. 자신의 책임분담을 하며 세상을 이기고, 시험과 핍박과 환난을 이긴 자를 주님은 쓰신다.
5. 이긴 자에게 상도 있고 대가도 있다.
6. 패자는 사라지고 승자는 남아서 역사를 편다.
7. 섭리역사에서도 패자들은 자기 책임분담을 못 하여 세상과 사망으로 사라졌고, 승자들만 남아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이 시대 휴거 역사를 펴고 있다.
8. 주님과 함께 하는 자만 이긴다.
9. 고생되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
10. 주님이 이 시대에 주님의 욕으로 쓰시는 중심자와 일체 되어 마음도 생각도 하나 되어 행하는 자가 이긴다.
11. 자기 책임을 못 하여 사탄과 악인들에게 패하게 되면, 그 땅을 내어 주고 그 땅이 짓밟힌 바가 되어 엘리야 시대 같이 다시 때가 되어 이긴 후에야 뜻을 펴게 된다.
12. 매일 자기 책임을 다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대가를 받고 풍부하게 살아라.
13. 이길수록 또 이기게 된다.
14. 승리자라도 나태하고 태만하면 상대에게 패하게 된다.
15. 승리한 리듬을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

<2011년 12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6. 주님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의 편이시다.
17. 자기 주관, 사고, 욕성으로 이긴 자는 이겨도 욕성으로 살게 된다.
18. 주님의 방법, 주님의 생각으로 이겨야 이긴 후에 주님과 함께 행하여 주 뜻대로 살게 된다.
19. 절대 시대에 해당되는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진 자만이 그 시대를 온전히 살아 이긴다.
20. 자기도 알고 적도 알아야 이긴다.
21. 실천하는 자가 승리한다.
22. 신앙적 승리는 '기도'다!
23. 승리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나중까지 담대해야 승리한다. 사랑은 항상 쉬지 말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는 것이다.

- 24. 지혜와 모략과 의논과 모사다.
- 25. 사탄은 방해자이니 먼저 기도로 사탄을 제거하고 행하여라.
- 26.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다. 생각이다. 결심이다.
- 27. 안 될 때는 그 방법으로 안 되니 방법을 달리 하여라.
- 28. 적을 알고, 완전히 준비하고 행해야 승리한다.

<2011년 12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 29. 승리하려면 매일 자기를 연단하여 날아다니도록 유능하게 만들어라.
- 30. 그에 해당되게 갖추고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 31. 승리는 마음과 정신에 있다.
- 32. 날고자 하는 마음만큼 육신도 같이 행하여 날아야 되니 연단이다. 그리고 반복하여 행하는 것이다.
- 33.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해야 승리한다. 하나님과 주님을 섬겨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 34. 승리는 정해져 있으니,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미 정해진 승리의 길로 찾아가는 것이다.
- 35. 사탄도 이긴 자는 힐문하지 못하고 인정한다.
- 36. 주님이 보낸 자가 행해야 이긴다.
- 37. 주님이 보낸 자는 주님의 몸이니 담대히 싸워 승리했다.
- 38. 부지런하고 열이 식지 말아야 이긴다.
- 39. 먹고 자고 놀면 못 이긴다.
- 40. 누구든지 지옥과 천국을 놓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느냐, 안 믿고 자기 자유대로 사느냐 이 양단간에 싸우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고 패하면 지옥, 믿고 사랑하면 천국이다.
- 41. 이긴 자는 육이 죽고 그 영이 천국에 가기 전에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도 삶의 지상천국을 누린다.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 42. 손이 빠른 자가 파리와 모기도 잡듯이, 빠른 자가 승리한다.
- 43.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시니 빠른 자가 승리한다.
- 44. 신령한 자가 아는 고로 승리한다.
- 45. 느리면 사탄에게 잡히고 적에게 잡힌다.

46. 빠른 자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내어 살린다.
47. 빠른 자가 먼저 보고 깨닫고 가져간다.
48. 빨리 해야 제시간에 하게 된다.
49. (주 편) 빠른 네가 하여라.
50. 소경은 늦기에 애만 태운다.
51. 욕적인 자는 느려서 항상 구시대다.
52. 어느 시대든지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빨라서 앞장서서 새 시대에서 산다.
53. 죄 짐을 진 자는 뛰어도 느리다.
54. 회개하고 모두 버리고 뛰어라.
55. 영으로 생각해야 빠르다.
56. 욕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빠르다.
57. 인간 스스로의 욕에 속한 생각은 땅에 붙어 땅에서 떨어지지 못하는 생각이다.
58. 주님 생각이 주님께 가게 한다.
59. 내 욕인 네가 하여라.
60. 생각하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안 보인다.
61. 노력하고 더 고생할지라도 꾸준히 해야 남보다 앞서 간다.
62. 정신일도 하여 빠져서 해야 빠르다.
63. 속달되어야 빠르다.
64. 신경 쓰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깨닫게 된다.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하나님과 주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
2. 기도는 자기를 행하게 한다.
3. 기도는 '말'로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에게까지 가게 하여 목적을 행하게 한다.
4. 기도는 욕으로 평생 해도 못 하는 일을 자기 영을 영의 세계에 보내어 행하게 한다.
5. 기도는 자기 영이 사망권 세계에서 생명권 세계로 나오게 한다.

6.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말이 들어가게 한다.
7.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
8. 기도는 자기 생명을 꼭 죽을 데서 살린다.
9.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된다. 어려워도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10. 인간의 욕이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을 주셨다. '기도'다!
11. 가령 자기 욕이 평생 못 가는 곳이 있는데, 전화로는 통할 수 있다 하자. 욕이 못 가더라도 전화를 통해 말로 하듯, 욕이 평생 못 하는 것은 기도로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2. 하나님의 나라는 욕이 살아서도 못 가고 죽어서도 못 간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그 말이 합당하면 천국의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 기도 내용을 눈으로 보신다.
13.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그 말을 기도 그릇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보시고 합당하면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14. 세상에서 누가 말을 하면 뇌에 녹음하거나 녹화했다가 전해 준다. 또 할 말을 글로 써 주면 그 글을 갖다 전해 준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기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한 자의 마음과 기도할 때의 모습이 녹화된 것을 보고 들으신다.
15. 사람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만 천사가 가지고 가지, 상달되지 않을 것은 아예 가지고 가지도 않는다.
16.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즉시 전하기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한다. 고로 기도한 자는 기도해 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17. 기도하면 마치 편지한 것이 가듯이 하나님 앞에 간다. 편지를 해도 상대가 답장을 써서 그 답장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듯이, 기도를 해도 영적 세계의 순서를 거쳐 자기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꼭 과정의 시간이 걸린다.
18. 주님과 대면하는 대화의 기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응답이 온다.
19. 성령으로 감동되어 일체 될 때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즉석에서 통한다.
20. 기도도 하는 자에 따라 그 차원이 천층만층이다.
21. 고통스러워도 자기 몸이 자기를 돕는다.
22. 자기 비밀을 자기만 알고 가면 아쉬움이 있으나, 상대로 인한 문제가 안 일어나니 편하다.
23. 인간은 하나도 모르고 태어난다. 수만 가지를 알아야 인생을 살아간다. 고로 육과 하늘에 대하여 배워야 된다.
24. 건너갈 수 없는 강 건너에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몸이 못 갈 때는 말로 전달한다. 그 말이 합당하면 들어준다. 이와 같이 몸이 못 갈 때는 말로 하여 말을 듣고 해결해 준다. 우리 육신은 하늘나라까지 못 간다. 우주의 이 끝에

서 저 끝까지 ‘빛’으로 가도 150억 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걸리겠느냐. 육신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고로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듣고 기도 그릇에 그 말을 담아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하나님은 기도의 말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합당한지 상황을 확인하시고 때를 따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2011년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상에서 육과 마음이 편한 곳이 육적 지상천국이다. 육과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 육의 지옥이다.
2. 영의 세계에서 영이 편하고 기쁜 곳이 영의 천국이다. 그곳이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이다. 영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이 영의 지옥이다. 그곳이 사탄과 악마들이 사는 지옥이다.
3. 사람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여 더 편하게 만든다. 편하게 쓰고 사는데, 마음의 곤고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신세계, 마음 세계의 위인 자기 영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곤고다.
4. 편하게 살려고 할수록 수고와 노력과 실천이다.
5. ‘영의 문제’, 곧 사망권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해결해야 된다. 영적 해답과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메시아로부터 온다. 영의 문제는 육신을 통해 해결된다. 곧 육신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로 인하여 죄를 해결하고 구속함을 받아야 된다.
6. 인간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지 않고서는 정신적으로 편할 수가 없고, 정신과 영이 가시방석에서 내려오지 않고서는 육신이 편할 수가 없다.
7. 육신도, 마음도, 영도 편하게 해야 편하다.
8. 걷는 것보다 마차를 타는 것이 편하니, 사람은 수고하고 노력하여 마차를 만들었다.
9. 천릿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차로 가는 것이 편하니, 사람은 노력하여 차를 만들고 열차를 만들었다.
10. 연구하여 좁은 길을 넓히고 넓은 길을 만드니 다니기가 편하고 가도 기쁘다.
11. 인간은 모두 자기가 더 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더 편한 것을 만든다.
12. 육신 세계도 더 수고하여 편하게 만들수록 편하게 살듯이, 영의 세계도 더 노력하고 수고하여 편하게 만들어야 더 편하고 더 기쁘다.
13. 영의 세계는 육신 세계같이 어떤 것을 만들어 편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해야 된다. 보다 더 이상적인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 해당되는 것을 행해야 된다. 시대 말씀을 행함으로 더욱 의에 이르러 차원을 높여 더 편한 세계로 올라가게 된다.
14. 영계도 선영계, 낙원, 천국으로 올라갈수록 더 편하다.
15. 결국 자기 마음과 육을 온전하게 만들수록 육이 편하다.
16. 영을 온전히 연구하며 만들수록 영이 편하게 살게 된다.
17. 육신 세계의 환경이나 집이나 자기가 쓰는 것들을 보다 좋게 만들수록 편하듯이, 자기 마음과 행실의 차원을 높여 의롭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수록 편하다.

18. 연구하고 노력하여 마차나 자전거에서 발전시켜 차를 만들어 쓰면 편하듯이, 자기 육신이 수고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수록 육도 변화되고 영도 변화되어 그만큼 편하다.

19. 자기 육이 변화된 만큼 그 차원에 속해 살게 되고, 자기 육이 변화됨에 따라 영도 변화되어 변화된 만큼 정확히 그 차원의 영계에 가서 산다. 영계도 육계같이 차원급대로 통하며 산다. 육의 지체를 봐도 눈은 눈으로 통하고, 귀는 귀로 통하고, 입은 입으로 통하며 살듯이 영계도 그 차원급대로 통하며 산다.

20. 나무의 영향을 과일이 그대로 받듯이, 자기 육의 변화만큼 영은 육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변화된다. 육의 변화만큼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구원받은 영은 각각 차원대로 선영계 - 낙원 -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21. 육신이 잠시 앉아 있어도 그 자세에 따른 만큼 편하듯이, 육의 삶이 온전한 만큼 영이 편하다.

<2011년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22.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서 끝까지 행해야 되기에 성공하기가 힘들다. 성공한 자는 고통과 고생과 어려움을 이긴 것이다.

23. 성공의 길은 가면서 성공하는 일들에 부딪히고 배우고 유능해지면서 끝까지 해야 한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고생하며 자기가 터득하면서 성공하는 법을 깨닫고 행하게 됨으로 성공하게 된다.

24. 고생돼도 저마다 겪어야 될 역경이 있다. 그러나 그 역경이 극심하여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다. 고로 성공하는 자가 적다.

25. 성공하려면 연마다. 단련이다. 건강이다. 도전이다. 굳건함이다.

26. 성공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수고와 노력과 땀과 고통을 주고 사는 것이다.

27. 정신을 무장해야 성공한다. 판단이 지혜로워야 성공한다.

28. 육의 성공은 육에 속한 성공으로서 땅을 향한 전진이다. 땅을 향한 노력이다. 땅을 향한 철저한 행동이다.

29. 영의 성공은 하늘에 속한 성공이다. 그 프로그램은 하늘에서 온다. 역시 노력이다. 수고다. 끝까지 도전이다.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둔 철저한 행동이다.

30. 내가 성공해 보니, 단시간의 성공이 아니었다. 인생 일생 한 가지를 향한 성공이었다. 인생을 성공하는 영원한 성공이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었다.

31.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다. 하늘의 운을 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했다. 깊이 기도해야 했다.

32. 큰 성공을 하려니 그 성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 조건을 세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의향과 아이디어를 받아 절대 그 뜻대로 행해야 했다.

33. 내가 이룬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다. 육신의 성공도 물론 따라왔다. 나를 따라서 해야 된다.

34. 성공자를 따라야 성공한다.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꿈이든지, 생시든지 순간만 기억나고 생각한다. 고로 순간 기록하여라. (주님께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 주님이 주신 잠언이다.)
2. 혼자 있으면 집중력은 있으나, 보고 듣는 것이 없으니 기억력이 떨어진다.
3. 뇌는 보고 들을수록 기억력이 발달된다. 보고 듣는 것이 없으니 기억력 숙달이 안 되어 기억력이 약해진다. 늙어서 세포가 죽어서가 아니다.
4. 홀로 있으면 다른 데 눈도 귀도 돌리지 않으니, 어떤 일을 할 때 집중하여 할 수 있다. 고로 정신계에 있어서 생각이 깊이 들어가 집중력이 발달된다.
5. 정신을 집중하여 깨닫고 즉시 기록하여라. 꼭 그래야 된다.
6. 주는 정죄하지 않으신다.
7. 주 안에 있는 자는 주와 같이 정죄하지 말아라.
8. 주님께 묻기를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을 왜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하셨다.
9.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악인들이 사는 세계요, 무지와 각종 염려의 세계다.
10. 누구든지 절대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관권에서 살면 사탄과 멀어진다.
11.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탄은 시기 질투의 존재라 사람들을 괴롭힌다. 고로 이 세상을 천국같이 만들기 전에는 사탄은 없어지지 않는다.
12. 사탄은 싸워서 없애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과 싸워 가면서 ‘의’로 존재해야 된다.
13.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전능자이시다. 악편도 사탄편도 아니라 성삼위를 믿는 자들의 편이시다. 고로 싸우고 물리치면 사탄이 물러간다. 성삼위를 믿는 자에게 절대 우선권이다. 이같이 사탄을 물리치면서 살아라.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문제의 해결이며, 사탄을 멸하는 길이다.
14. 사탄은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마음만 먹고 있어도 안다. 어떻게 아는지 아느냐. 영의 표정이 영적으로 나타나다. 사람이 마음에 괴로운 것이 있으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육의 눈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보인다. 고로 음란한 마음만 먹고 있어도 사탄은 알고 쫓아온다. 그러다가 악하게 마음먹은 것을 행할 때 사탄도 같이 쾌락을 느끼며 행한다.
15. 주님과 같이 행한 것은 어떤 일도 죄가 아니다. 의다.
16. 사탄과 같이 행한 것은 모두 다 죄요, 불의다.
17.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을 다 멸해 달라고 하지 말고, 마치 모기가 물러오면 잡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탄과 싸워 이기면서 사탄을 다스려야 된다. 사탄보다 인간이 우선이다.

<2011년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 문제에서 용서의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2. 주님은 평생 용서해 주신다. 고로 용서 앞에 회개다.

3. 주님은 인간이 그 문제를 놓고 할 만큼 해야 용서해 주신다.

4. 만일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더 이상 못 하고 거기서 끝난다.

5. 용서는 구원이다.

6. 용서는 살 길을 주는 것이다.

7. 용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8. 용서는 살려 주는 일이다.

9. 한없는 회개와 뉘우침과 노력과 몸부림과 행함이 있어야 용서다.

10. 매일 죄짓고 사는 인생들이 매일 회개한다면 매일 용서받고 살 길이 있다.

11. 용서가 없다면 구원은 끊어진다.

12. 용서는 구원이요, 자비요, 긍휼이다.

13.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신다.

14.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신다. 고로 끝까지 뉘우치며 진정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15. 사람이 만 번째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또 용서해 주셨다. 고로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

16. 주님은 어떤 자가 구원받기 불가능한데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이다.

17. 용서하지 않으면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18. 용서하면 그가 지은 죄가 전혀 안 보이게 되어 본래같이 대해진다.

19. 가령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이성의 죄를 지었다 하자. 회개하여 진정 용서해 주면 죄짓기 전의 본래 모습같이 보이고 본래같이 대해진다는 것이다.

20. 진정 용서해야 본래같이 보인다.

21. 진정 용서해야 회개한 자가 죄 가운데서 살아난다.

22. 진정 용서하고 대해야 죄지은 자가 그 죄에서 진정 살아나게 된다.

23.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진정 용서해 주신다. 고로 우리가 그 죄에서 영원히 끝나게 되며, 주님은 우리를 본래같이 대해 주신다.

24. 죄를 지은 자는 거듭해서 짓기에 낙심하여 회개도 안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진정 원하시고,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진정 용서하신다. 꼭 회개해야 살아난다.

25. 주님이 우리 죄를 진정 용서하지 않고 본래같이 대하지 않으시면 사탄이 잡아가고, 또 우리가 생명길을 못 가기에 주님은 진정 회개하는 자를 진정 용서해 주신다.

26. 진정 회개, 진정 용서다.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27. 주님은 회개의 횃수를 정해 놓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오직 주님만이 전지전능하시며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존재자이시다. 고로 주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기에 회개의 횃수를 정해 놓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주님은 구원의 최종자이시기 때문이다.

28. 주님 외에 용서하여 살릴 자가 또 있으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고통 받게 그냥 두실 것이다. 주님은 용서의 주인이시다. 고로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용서해 주신다.

29. 구원하지 않으려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30. 주님은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죄에서 살 길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31. 용서는 이와 같다. 어떤 차가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대로 멈췄다. 유일하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차에 기름을 안 넣어 주면 평생 못 움직이고 끝나는 상황이다. 이때 기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차에 다시 기름을 넣어 주는 것이 '용서'와 같다.

32.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 주신다.

33. 용서해 주는 자는 희망을 가지고 용서해 주니, 용서를 받은 자는 용서를 받고 용서해 준 자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34. 형제의 죄도 진정 용서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

35. 다시 주 안에서 주와 같이 살려면 진정 용서해 줘야 한다. 그래야 꺼림이 없어서 같이 살게 된다.

36. 진정 용서해 주지 않았더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마음의 꺼림이 되고 눈의 티와 같이 되었다.

37. 사람들은 영원히 미련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그만두려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끝내 버린다.

38. 주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본인이 못 해서 구원길을 못 갔으니, 주님은 "미련도 후회도 없다." 하신다.

39. 섭리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욕이 된 자가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용서했으나, 본인들이 진정 회개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다가 스스로 세상길로 가고 멸망길로 갔다.

40. 형제가 잘못하여 회개했을 때, 자기도 같은 운명이다 생각하고 진정 용서하여라.

41. 만일 형제를 용서해 주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어도 용서하여라. 하나님과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

42. 미운 자라도, 원수라도 용서해야 그가 살아나서 용서해 준 자에게 은혜를 갚는다.

43.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진정 회개해야 꺼림이 없다. 또 그에 대한 형벌을 받든지 조건을 세워야 꺼림이 없이 온전하다. 그래야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매인 끈이 완전히 끊어지고 제거된다. 그래야 용서해

주신 주님도, 형제도 다시 갈 길을 제시해 주고 할 일을 준다.

<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44. 용서와 회개는 마치 고장 난 차를 원상태로 고친 것과 같다.

45. 그 날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졌다. 운전하지 말라고 말한 자는 차를 수리해주는 자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사고가 났으나, 차를 수리해 줄 자는 그 사람밖에 없으니 사고 난 차를 다시 수리하여 원상태로 고쳐 주었다. 차는 이미 사고가 나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이때 차를 수리하는 자가 용서해 줘야 차가 고쳐진다. / 용서해 주면 차를 고쳐 준 값을 내는 것이 회개다. 형벌이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진정 용서는 진정 고쳐 준 것이 되고, 진정 회개는 진정 고치는 값을 내는 것과 같다. 고로 진정 회개, 진정 용서다. 그래야 본래 상태로 갈 수 있다.

46. 차가 자주 사고가 나서 자주 고친다면, 후에는 고쳐도 약해져서 차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그 죄든지, 다른 죄든지 자주 죄를 짓고 자주 회개하며 사는 자는 용서해 주어도 자기 기능이 약해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47.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의 사망권에서 나올 수가 없다.

48. 진정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

49.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여 영영 사망에서 나오지 못한다. 회개도 용서도 생명의 역할을 한다.

50.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호리(한 푼)라도 남김없이 해결해야 호리(한 푼)라도 묶이지 않아 거기서 나온다.” 하셨다(마 5:26).

51. 자신이 아무리 회개했어도 용서할 자가 진정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회개도 필요 없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에 처한 자가 된다. 고로 용서할 자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회개해야 된다.

52.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 대가를 치렀기에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다.

53. 세상에서 서로 간의 용서는 육적인 것의 용서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하늘에 속한 용서다. 육과 영이 둘 다 풀려야 된다.

54. 땅에서 매인 것이 용서받고 풀려야 하늘에서 매인 것도 용서받고 풀린다.

55. 썩는 것은 안 보여도 냄새로 알게 되듯이, 죄지은 것이 안 보여도 느낌으로 알게 된다. 영감, 직감, 느낌의 냄새로 죄를 알게 된다.

56. 더러우면 먹을 것도 못 먹듯이, 죄가 있으면 취할 것도 못 취한다. 고로 깨끗이 회개하고 청결하게 해야 된다.

57. 시장의 채소도 과일도 더럽고 싱싱하지 않으면 사 가는 자들이 이유를 붙이고 제값을 주지 않는다. 신앙도 그러하다.

58. 채소와 과일을 얼마든지 깨끗이 닦아 싱싱하게 할 수 있듯이, 자기 인생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싱싱하게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예수님은 행하실 때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는데, 뜻있는 자만 알게 하시고 그와만 행하신다.
2.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숨기시는 뜻은 인간이 아무리 알고 해도 모른다. 그 은밀한 뜻은 오직 그가 원하는 자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뜻을 펴 나가신다.
3. 은밀한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면, 그 개인에게만 그 뜻이 해당되니, 그 사람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하면 된다.
4. 하나님께서 한 사명자에게만 그 뜻을 은밀하게 말씀하셨어도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면, 사명자를 통해 그 뜻을 전하여 결국 모두 알게 하신다.
5.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 개인과 하늘에게만 속한 것이면, 사명자가 그 뜻을 받아 알았어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행해야 완전하다.
6.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밀히 세상에 행할 것들을 먼저 선지자나 사명자에게 보여 깨닫게 하시고 행하신다.
7. 하나님과 예수님이 깨닫게 해 주신 것을 말해야 될 것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8. 인봉한 성경 말씀도 그 일의 사명자만 깨닫게 하신다.
9. 성경에 때를 두고 인봉해 놓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거기에 해당되는 택한 자, 사명자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 그 사명자가 자기 책임을 하게 하면서 그 시대 뜻을 펴 나가신다.
10. 인봉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깊은 것은 시대의 때로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한 때, 두 때, 반 때에 해당되는 인봉이다.
11. 한 때, 두 때, 반 때를 통해 인봉된 주님의 재림의 때를 풀고,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풀게 된다.
12. 사명자는 본인이 본인의 몸을 가지고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타인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해 줄 수가 없다.
13.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대 사명자에게만 말씀하시니 그 사명자만 알고 행한다.
14. 말씀의 사명자, 사랑의 사명자, 신부의 사명자, 그에게만 해당된다.
15. 사명자는 마치 결혼식 날 신랑에게 신부 같은 입장이고, 그 나머지는 축하해 주는 하객과 같은 입장이다.
16. 이 시대 주님 앞에 택함을 받고 깨달아 새 시대로 온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신부와 같고, 시대를 깨닫지 못하고 새 시대로 오지 못한 채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혼인 잔치집의 손님과 같다.
17. 주님이 오셔서 그 신부와 그 형제와 그 종과 함께 먹고 마셔도 신부가 된 자만이 주님이 자기의 신랑임을 알고, 주님도 같이 사랑했기에 그만이 신부임을 안다. 다른 자들은 모른다.
18. 같은 세상, 같은 시대에 살아도, 한날 한자리에 같이 있어도 시대 말씀을 모르니 주님이 오셔서 먹고 즐겨도 모른다. 주님이 택한 자들을 데리고 가셔도 모른다.
19. 예수님 때도 주님이 오셔서 같이 먹고 즐기셨으나, 그것을 보면서도 시대의 숨긴 말씀을 못 들어서 몰랐다.
20.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사람을 쓰고 나타나서 역사하셨기에 몰랐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배우고 깨달은 자만 알고,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를 믿는 자들만 알았다. 알고 믿는 것이 개인이 인봉을 뚫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만 구원하신다.

22. 주님 앞에 세운 공력은 '사랑'으로 받는다.

23. 받아도 모르는 자는 받은 것을 상실하게 된다.

24. 사랑을 받은 자도 사랑의 불이 꺼지고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거기서 끝난다. 다시 사랑을 뜨겁게 하고 연결시키면 또 사랑의 역사를 하게 된다.

25. 하나님도 주님도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26. 천국은 온전한 진리와 사랑의 나라다. 고로 사랑 없으면 못 산다.

27. 사랑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뜻이 펴진다.

28. 사랑의 기업은 구원역사의 기업이다.

29. 맨 마지막 구원역사는 사랑 역사의 끝을 맺는다.

30. 구약역사는 사랑하기 위해 키우는 <소생급 역사>이며, 신약역사는 연애하며 사귀는 <장성급 역사>이며, 성약역사는 변화시켜 신부 되게 하여 취하고 사랑하며 사는 <완성급 역사>다.

31. 처음에 자신이 좋아서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로 느껴져 싫어진다. 그 이유는 육체적 사랑을 중심하기 때문이다. 깊고 높은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을 해야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사랑의 차원도 더 높아진다. 하늘과의 사랑도 육체를 중심한 사랑을 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별로라고 하며 주님을 저버린다. 고로 처음에는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도 나중에는 별것도 아니라고 하며 떠나가게 된다.

32. 육적 사랑에 불붙이며 정신적 사랑에 불붙이고 영적 사랑에 불을 붙여야 인간의 육신이 없어지고 영으로 존재할 때도 그 영이 영원불변하게 되고 그 사랑도 영원히 간다.

33.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 줘야 주님과 정신적 사랑을 하여 주님과 일체 된다. 시대에 주님이 행하시는 뜻을 알려 주어야 주님의 사명자와 일체 되고, 주님의 사명자에게 주님에 대한 증거를 받아야 주님과 일체 된다.

34. 주님의 온전한 시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육적인 사랑에서 곁도는 자들은 마치 나무가 거죽만 불타 그을린 나무와 같다. 연기만 불꽃같이 솟을 뿐이다.

35. 주님의 깊은 기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마치 나무가 속까지 뜨겁게 타서 불꽃이 솟아오르듯, 주님과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여 생각도, 정신도, 영도 불태우게 되어 그 사랑이 영원불변하다.

36. 뜨거운 시대 말씀과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고로 시대 말씀을 주는 자를 멀리하면 안 되고, 성령 역사의 사명자를 멀리하면 안 된다. 멀리하는 자는 소경이다.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와 성령의 사명자를 멀리하면 안 된다. 그들은 소경이다.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를 멀리하고 홀로 불붙인다고 하지 말아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굳이 알려 주고 싶지 않아. 말로 알려 주는 것은 수박 겉핥기와 같다. 본인이 뜨겁게 깨닫고 알아야 한다.)

37. 주님이 그 시대에 선포하시는 근본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그 시대에 어떤 뜻을 펴시는지 알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 구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다. 그러나 그 주관권의 은혜로 인한 성령의 역사다. 같은 성령의 역사라도 구시대와 새 시대는 성령의 차원이 다르다. 주님이 사랑하셔도 구시대와 새 시대는 사랑의 차원이 다르다.

38. 시대 말씀을 듣고 그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시대 사람으로 변화되어 변화된 육, 정신, 마음, 영으로 주님을 맞아 살게 된다.

39. 먼저 삼위께서 삼위를 증거하라고 보내신 자의 말을 듣고 그 사명자와 일체 되고, 다음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에 대해 알아야 된다.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는다.
2. 만들다 만 것은 변한다.
3. 자기 마음과 영을 주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완전히 만들어라.
4. 만들다 말면 변질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5. 악인이 선인이 되기도 어렵고, 선인이 악인이 되기도 어렵다.
6. 사탄이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자는 하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
7. 주님이 하늘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자는 다시 변질되지 않는다.
8. 아주 힘들어도 자신을 하늘에 속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9. 항상 만드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
10. 완전히 만들어 버린 후에야 완전하다는 취급을 받게 된다.
11. 자기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변질되지 않는다.
12. 자기가 사탄 주관권을 완전히 떠나, 주님께 대해 온전히 알고 깨달아 주님 주관권에서 산다면 완전히 만들어져서 사탄의 세계로 가지 않는다.

<2011년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3. 주님 주관권에서 사는 자라도 매일 주 안에서 살아야만 타 주관권의 유혹이나 자신의 부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14. 산의 나무는 베어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집이 다시 나무가 되지 않는다.
15. 인간은 사망권에서 이끌어다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났어도 자기가 할 일을 못 하면 다시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16.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고 온전히 남편의 사람이 됐는데도 여자가 마음이 변하면 다른 남자의 몸이 된다. 이와 같이 신앙세계에서도 10년, 20년 동안 주님의 몸이 되어 살았는데도 변질되어 사탄의 것이 되기도 한다.

17. 사탄 세계나 세상 어둠의 주관권에서 살던 자가 주님의 것이 되었어도 환난이나 유혹으로 넘어지고 이성으로 빠지면 다시 옛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든 자라도 매일 주와 일체 되어 생명권의 삶을 살아야만이 변질되지 않는다.

18.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은 예정이 아니다. 자기 책임을 못 함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변질되었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꾀에 들어 변질되었다.

19. 섭리사에서 살다가 변질되어 나간 자가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변질되었다.” 하셨다. 섭리사에서 주를 믿었다가 주를 버리고 간 것이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버리고, 섭리사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나간 것이다. 섭리사의 주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다. 고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섭리사를 나가서 나를 믿어도 나를 버린 자로 취급한다.” 하셨다.

20. 한 지역에서 자기 나라의 왕을 불신한 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왕을 찾으며 살아도 그 지역만 벗어났을 뿐이지, 그곳에 가도 왕으로부터 불신자 취급을 받는다. 이와 같이 한 번 주님을 불신하면 지구촌 어디를 가서 주님을 찾아도 주님을 불신한 자 취급을 받는다.

21. 불순종함으로 마패를 뺏기면, 그 나라의 어디를 가도 다시 마패를 받지 못한다.

22.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는 다시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지구 세상 어디를 가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23.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어떤 교파에서든지 주님을 불신한 자는 어디를 가도 불신자 취급을 받으며 복직하기가 힘들다.

24. 주님이 보낸 자를 불신한 자도 주를 불신한 자가 된다.

25. 섭리사를 불신하고 나가서 기성에서 진정 회개했다고 하자. 그러면 구시대에 속하여 섭리사를 불신한 형벌을 받고, 구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섭리역사의 혜택은 이 주관권에 오기 전까지는 못 받는다. 또한 구시대에 속하여 섭리역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 구원에서 벗어난다.

26. 탕자처럼 회개하면 본래의 상태로 복직되어 다시 그 주관권의 혜택을 받게 된다.

27. 만일 탕자가 집으로 안 돌아오고 사촌 집으로 가서 회개하고 살았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혜택밖에 못 받는다.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기에 다시 아들로 복직된 것이다.

28.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행한 일들을 모두 머리에서 지워 버리고 기록한 종이도 다 태워 버렸다.

29. 하나님도 구약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약권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아들 문서를 주시고 종 문서는 다 태워 버리셨다.

30. 성약권으로 온 자들에게는 아들 문서는 불사르고 신부 문서를 주셨다.

31. 저마다 신부의 삶이 신부의 증거 문서다.

32. 완전히 섭리사로 돌아와서 회개한 자는 다시 주님의 신부로 복직된다. 자기가 행한 대로 복직이다.

<2011년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33. 만일 섭리사를 나갔다 하자. 그가 다시 돌아왔는데, 선생만 용서하고 복직시켰다 하자. 그러면 선생 주관권 복직이

다. 주님과 같이 하나 되어 복직시켰다 하자. 그러면 본래대로 복직된 것이다. 본래대로 복직되었어도 자기에게는 손해가 간 것이다. 주님은 본래대로 대해 주시지만, 한 번 벗어나고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자기 본래 코스로는 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34.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복직되어야 처음 주님의 계획대로 사명도 그대로 가게 된다.

35. 처음 국가에서 뽑은 대표 선수가 있다 하자. 그가 처음에는 잘하다가 변질되어 욕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로 갔다 하자. 국가에서 다른 자를 뽑아 그 자리에서 대표 선수 생활을 하게 했다. 나간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회심하고 복직했다 하자. 복직되었어도 예전의 위치에 가지는 못한다. 이미 대신 세운 자가 그 위치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탈선했기에 본래 위치는 주지 않고 다른 위치를 줘서 뛰게 한다. 주님도 그와 같이 하신다.

36.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여 열두 제자에서 제함을 받았다. 그 자리에 맛디아를 세웠다.

37. 탕자가 자기 생각대로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회심하고 돌아왔다. 아버지는 탕자를 받아 주고 복직시켰다.

38. 예서가 사명을 못 하니 야곱이 사명자가 되어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폈다.

39. 사명자로 세웠어도 그가 사명을 못 하면 후자가 한다.

40. 주님은 깨끗한 자를 깨끗한 제물로 삼으시고 깨끗한 위치에 쓰신다.

41. 세상에서 살 때 깨끗한 것을 지켜 변질되지 않으면 영원히 깨끗한 것으로 받게 된다.

42. 세상에서 욕신이 죄지은 것을 깨끗하게 회개하면 욕의 죄도 끝나고, 그 영도 영의 세계에 가서 죄가 기억도 안 나고 죄를 찾아도 보이지 않게 주님은 아예 없애 버리신다.

<2011년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43. 가정에서 딸이 시집갔어도 가정에서는 역시 딸로 남아 있다. 그러나 여자를 신부로 맞은 남자 쪽에서는 딸이 아닌 신부요, 아내로 대한다. 딸의 가정에서는 딸로만 보니 딸이라 하고, 남자는 신부로 보니 신부라 하면서 싸우면 안 된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온 자도 그러하다. 구시대에서 볼 때는 자녀로 보지만, 새 역사 섭리사로 완전히 온 자는 자녀로 보지 않고 신부로 본다.

44. 성경 말씀도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하늘의 사명도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45. 예수님도 구시대 신약역사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성약역사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

46. 성경의 해석도 어느 시대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구약권 해석이다르고, 신약권 해석이 다르고, 성약권 해석이 다르다. 이를 깨닫고 이해하고 행하며 싸우지 말아야 된다.

47. 저마다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다. 이와 같이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48.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만 종이 아니라 광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간 자들만 가나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49.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그러하다. 구약에 사는 자를 신약인이라고 하면 생소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약역사로 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는 자만 신약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 한다. 이것이 신약인들만의 특권이다.

50. 성약말씀을 듣고 사는 자만 주님의 신부요, 성약 사람이라고 인정된다. 이것이 성약인들만의 특권이다. 반드시 성약역사로 와서 주님의 온전한 재림 말씀을 듣고 행하여 거듭나서 신부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자들만 신부 취급을 받고 성약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약인들만의 특권이다. 신약인은 신약인이고, 구약인은 구약인이고, 성약인인 성약인이다.

51. 결혼도 안 한 자인데 아줌마 취급할 수 없고, 부인 취급할 수 없으며, 아이도 안 낳은 자를 아이 엄마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반드시 섭리역사로 와서 주님의 재림 말씀과 성약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 거듭나야 주님의 신부 취급을 받게 되고 성약인 취급을 받게 된다.

<2011년 12월 24일 성탄 잠언>

1. 온 세상을 보니 분위기로 나의 성탄을 보내고 있다.
2. 파티하고 먹고 즐기고 자기네들끼리 사랑하며 즐기는 성탄을 보내고 있다.
3. 성탄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에 빠져서 돈을 벌고, 사업하고, 미팅을 한다.
4. 타락 문화로 나의 성탄을 쓰고 있다.
5. 나 예수를 생각하고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야 나 예수가 성탄을 맞는 보람이 있건만, 그렇지 못하다.
6. 이때는 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간구하며, 나와 의논하며, 나와 같이 보내야 할 성탄이다.
7. 구세주의 성탄인데, 이 세상에서는 나의 성탄이 어떤 세상 사람의 탄생같이 흘러갔다.
8. 나 예수에게 잘 보여야 사망으로 갈 자가 생명으로 가건만, 이제 내가 가면 1000년 동안 역사가 흘러가는데, 끝까지 나를 그같이 대하고 보내는구나.
9. 나 예수는 온 세상이 다 아는 구세주다. 고로 누가 말을 안 해도 인생들이 알아서 나를 대해야 한다.
10. 각자 내게 행한 대로 영원히 좋게, 혹은 영원히 나쁘게 받는다.
11. 그래도 섭리사에 사는 너희는 30년 동안 땅에서 나의 재림을 맞고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룬 자들이다. 고로 나 예수와 하나 되어서 신부로서 성탄을 보내라.
12. 특히 올해는 나 예수가 떠나면서, 악하게 산 자들과 평화롭게 살지 못한 자들을 심판했다. 연말 마지막 날까지 나의 심판은 내가 보낸 자와 함께 쉬지 않는다. 나의 법을 벗어난 개인과 민족까지 계속 그 행위대로 냉정하게 갚아 줄 것이다.
13. 육신의 심판은 누구나 받는 결과의 것들이다. 너희는 영혼의 심판이 어떠한지 알아라.
14. 육은 멀쩡해도 그 영혼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사망 지옥 쪽 선고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15. 세상 어느 누구든지 나와 같이 모으고 헤치면서 산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나 예수를 불신하고도 뜻을 벗어나 나를 찾는 자들은 외식에 처한 자들이며 사망에 처한 자들이다.
16. 나 예수는 전능자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 신이다. 인생 대하듯 대하면, 마치 왕을 한 회사 사장이나 평민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엄한 벌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된다.

17. 온전히 감사로 대하고 행한 일을 알고서 대해야 된다.

18. 나와 생각을 같게 하여 나를 대해야 된다.

19. 의미 없이 대하지 말아라. 나 예수가 너희 선생을 통해 행하는 것을 모든 일의 징조로 보고, 왜 그리했는지 깨달아라.

20. 선생과 의논하지 않는 자는 나 예수의 뜻을 벗어난 자로서 자기를 중시하여 사는 자들이다. 그러다 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다.

21. 내게 집중해야 나를 놓치지 않는다. 지금 나를 놓치면 마치 꼭 타야 할 차를 타지 못하는 것과 같고, 비행기를 탈 때 애인이 같이 못 탄 것과 같은 때다.

22. 나와 떨어진 자는 내가 떠났기에 나를 다시 찾지 못한다. 고로 혼자 처세를 해야 된다.

23. 나 예수를 찾아라. 그리고 나 예수가 너와 동행하는지 보아라.

24. 자기 점검, 자기 관리의 때다.

25. 그냥 옆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확인하여라. 옆의 사람이 나 예수와 떨어져 사는 자이면, 너 역시도 나와 떨어진 자가 된다. 너는 나 예수와 붙은 자와 같이 하여라.

26. 휴거는 나 예수와 생각과 마음과 영이 붙는 것이다. 붙어야 끌려간다.

27. 결혼식 직전과 결혼식 때, 신랑 옆에는 신부 외에는 못 붙는다. 그때 신부가 신랑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 세상 결혼식 때 신부가 신랑과 떨어지면 지상 육의 세계라서 찾아가지만, 나의 세계에서는 전능자와의 혼인식이라서 떨어지면 홀로 지상에 처져 떨어진 자가 된다.

28. 관광 갈 때 한 팀에서 떨어지면, 많은 자들이 기다릴 수 없으니 떨어지 자를 안 기다리고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이와 같이 하늘 역사를 진행하다가 양 한 마리를 두고 양 99마리를 그대로 세워 놓지 않는다. 그리 알고 지금 나 예수에게 붙어라. 지금 내게 붙은 자가 나의 영적 재림 때 나를 맞아 그대로 하늘나라로 휴거된다.

29. 지금은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신부 단장을 하고 나 예수를 기다리는 때다.

30. 기도할 때 말만 청산유수같이 하지 말고, 나 예수와 통하는지 보아라. 나 예수를 불러 보고, 나와 붙어 있는지 보아라.

31. 돌감나무인 너희가 참감나무인 내게 붙어야 산 자가 된다.

<2011년 12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마음도 몸도 편안한 것을 그렇게도 좋아한다.

2. 육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 말고, 영적으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여라.

3. 육신의 몸과 마음의 편안함은 아무리 편안해도 영적으로는 곤고하다.

4. 영적인 편안함은 육도 마음도 편안하게 한다.

5. 육의 편안함은 쉬는 것이나, 눕는 것이나, 노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먹고 즐기는 것이다. 고로 아무리 편하게 해줘도 결국 편안함이 변하여 불편함이 찾아온다.
6. 어떤 한 사람은 편하려고 방에서 놀고 놀고 잠만 잤다. 다른 한 사람은 편하려고 운동하고 뛰고 달리며 몸을 풀었다. 집에만 있던 자는 결국 무기력해지고 몸이 약해졌고, 운동하면서 편하게 한 자는 건강해졌다. 육적으로 편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편하라는 것이다.
7. 새벽에 잠을 자서 편하려고 하지 말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편하려고 하여라.
8. 어떤 사람은 편하려고 일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지었다. 결국 배고프고 고통이 와서 편하지 못했다.
9. 악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시작되었다.
10. 선의 발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11.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어 순종하는 자는 선인으로 보시고, 불순종하는 자는 악인으로 보신다.
12.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었다.
13.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다. 고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다.
14.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고 선인이 되었다.
15.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를 쌓았고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었다.
16. 하나님은 선이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 되고, 불순종하면 악이 된다. 하나님은 이로써 선과 악을 쪼개고 구분하셨다.

2011년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7.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은 선과 악으로 보신다.
18. 자신이 행한 죄와 악은 스스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죄와 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죄와 악이다.
19.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으로 행한 것까지도 신혼골수를 다 꿰뚫어 낱알이 보시고 심판하신다.
20. 자기 스스로 악을 행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악을 행한 자는 사람이 그를 해하지 않아도 스스로 때가 되면 홀연히 멸망의 지역에 부닥쳐 망하게 된다.
21. 하나님은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악을 멸망시키신다.
22. 악의 멸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이고, 악을 멸망시키는 날을 정해 놓으셨다. 그때까지만 악이 존재할 뿐이다.
23.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악을 맡기고 놔둬야지, 인간이 스스로 악을 갚으면 그도 악인이 되어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24. 주님은 악을 선으로 심판하신다. 선이란, 공의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25. 세상 사람들은 심판 날에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묻지 않고 심판하신다.
26.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심판을 받아 봐야 안다.
27.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심판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죄대로 다 심판한다.” 하셨다.
28. 하나님은 육도 심판하시지만 영까지 심판하시기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망으로 끝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심판받고 영계에서 1000년, 2000년, 4000년씩 형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자는 심판받고 죽음으로 끝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자는 심판받고 평생을 고통을 받으며 살기도 한다. 하나님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으시고 그 행위만큼 하늘의 정한 공의의 법대로 행하신다.
29. 하나님은 육뿐만 아니라 영도 심판하신다. 고로 수천 년씩 형벌을 주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30. 사람이 볼 때 죄인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있다.
31. 하나님께서 말씀의 법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다.
32. 죄와 벌이다. 의와 복이다.
33.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와 악으로 보시고, 의와 선으로 보시는지 알아라.
34.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로 보시고 악으로 보신다. 이로 인하여 심판하여 벌을 주신다.
35. 인간은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것을 선으로 본다.
36.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선으로 보신다.

<2011년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37. 죄와 악의 출발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죄인과 악인으로 보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여 형벌을 주셨다.
38.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스스로 선을 행하면 세상에 속한 선으로 보고 대해 주신다. 그러나 그 선으로는 육신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속하지 못한다.
39.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40.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세상에서 행한 선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그 행위대로 세상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
41. 영원하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육도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축복을 받으며, 영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42.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한 선(善)은 어디까지나 세상에 속한 선(善)일 뿐이다.
43.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선한 일을 한 자는 그 마음과 영이 선한 자에 속하여, 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본질상 육도 영도 더 빛나는 차원 높은 구원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

44. 영원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육도 영도 비로소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45. 세상의 누구든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그가 보내신 사명자와 일체 되어 시대 말씀에 순종해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최고의 구원의 땅에 이르게 된다.
46. 선한 삶을 살고 죽은 자는 그 영도 선한 영이 되어 선한 영계에 가지만, 근본의 영생에 속한 영은 되지 못하여 영생의 나라에는 가지 못한다. 선한 영계에 가셔도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에 속한 영이 되어야 한다.
47. 영생길은 따로 있다. 그 길은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의로 인하여 한 발자국씩 가는 것이다.
48. 지옥길도 따로 있고, 천국길도 따로 있다.
49. 진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진실로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진실로 천국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50. 글씨 한 자도 어떻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쓰느냐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뉜다.
51. 그림 한 장도 잘 그리려면 수백 번씩 그려 봐야 제대로 그려져 자기도 만족하고 보는 자도 만족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만족하게 하려면 '믿음'도 굳세게 하고, '말씀'도 정성껏 받아들이고 깨닫고 지키고 행해야 되고, '사랑'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야 된다.
52. 신앙의 마음과 행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앞에 최고의 작품을 만들듯이 정성을 다해 해야 된다.

<2011년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53. 자기의 육적 마음과 생각과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 확실히 안다. 육적으로는 확실히 구분이 안 되고, 차이가 안 난다.
54.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별이 일을 못 하듯이, 사람이 게으르면 자신이 할 일을 못 한다.
55. 게으른 자는 마치 꿀벌들이 일할 때 거기에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은 일을 자기에게 하는 자다.
56. 자기 자신은 벌이요, 게으름은 비와 물이다.
57. 뛰는 시간에 뛰고, 걷는 시간에 걸어라.
58.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어떤 것은 자체가 하나님의 선의 법을 벗어난 행위가 되어 그 행위대로 그 자체의 삶이 심판이 되기도 한다.
59. 험한 길을 가는 자는 길이 험한 만큼 고통을 겪듯이, 악한 길을 가는 자는 악한 만큼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하셨다.
60. 하나님은 사람의 선악의 행위대로 스스로 심판을 받게도 하시고, 그 행한 대로 심판 날을 정하시어 형벌하기도 하신다.

61. 어떤 큰 죄와 악만을 죄와 악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크고 작은 것이 존재한다.
62. 가령 주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요, 작은 악이 된다.
63.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악의 시발점이 되어 악의 편에 속한 자가 된다. 고로 회개해야 악 주관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64. 사랑하는 자라도 심기를 상하게 하면 죄가 되고 선에 속한 일이 되지 못하고 악에 속한 일이 되듯이, 주님께도 그 러함을 확실히 깨닫고 행하여라.
65. 죄와 악에 속한 것은 눈의 티를 제거하듯이 온전히 회개하여 제거하여라. 그래야 깨끗해져서 편하다.
66. 사람이 몸의 더러운 것을 씻고 닦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씻고 닦는 일이다.
67. 죄 때문에 결국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68. 죄는 자기 성격대로 태산같이 지어 놓고 회개는 제대로 안 하니 죄가 그냥 남아 있다. 그 엄청난 죄를 지어 놓고 말로만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겠느냐. 말로 회개하고, 또 자기 행실로 의를 행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고로 회개가 어려운 것이다.
69. 현 시대에 시대 복음을 따르다가 불신하고 배신한 자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므로 다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다.
70. 처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 육신을 못 박은 것이다. 그로 인하여 누구든지 그 후손이 되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영으로 오시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셨다. 그러나 시대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불신한 자는 주님을 두 번째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된다. 즉 사명자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심정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된다. 고로 성경에 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용서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71. 하나님은 새 역사는 옛 역사와는 다르게 행하셨다. 새 역사에는 옛 법과는 다른 새 법을 주시며 행하셨다. 구약 법과 신약 법이 다르고, 신약 법과 성약 법이 다르다.

<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72.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는 없다.
73. 육신의 편안과 안일은 잠깐이다. 영적 편안과 안일은 근본적인 것으로서 영원히 간다.
74. 사람이 피곤하면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육도 마음도 놓고 싶고 쉬고 싶다. 이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문제다. 쉬어야 된다. 자야 된다. 치료해야 된다.
75. 지나친 육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은 농부가 편하려고 농사를 안 짓고 방에서 편히 지내는 것과 같다. 그로 인하여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배고픔의 고통을 겪게 된다. / 신앙도 마음과 몸이 편하려고만 하고 신앙 농사를 부지런히 안 짓고 살면 얻는 것이 없어서 육도 마음도 영도 굶어 죽는 고통을 받게 된다.
76. 인간은 두 가지로 편안함을 누린다. 하나는 육적으로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다.

77. 육적으로 편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편하려 하여라. 그래야 육도 편하고 영도 편하다.

78. 잠으로 피곤을 풀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 예수와 같이 일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영과 마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의 피곤함을 풀어라.

79. 새벽에 피곤하다고 잠을 자면서 피곤을 푸는 자는 잠을 많이 자고 나도 시원하지 않다. 영적 근본의 피곤을 못 풀었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활동하여 육의 피곤을 풀고 마음과 영의 피곤을 풀어라. 이 역시 사망길과 생명길 두 길이다.

80. 섭리세계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 온 자와,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영도 마음도 몸도 풀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온 자와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하겠느냐. 꽃과 열매요, 돌감나무 열매와 참감나무 열매다.

81. 고생되어도 노력하여 옛집을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짓는 자와, 그냥 편안히 살겠다고 옛집에서 사는 자를 보아라. 그 집을 보면 결국 누가 더 편하게 쉬면서 인생을 살겠느냐.

82. 육신의 편안함은 영을 죽이고, 영혼의 편안함은 육신을 살린다.

83. 육신의 행실의 결과를 영계에서 보면 모두 이렇게 보여 준다.

84. 몸부림쳐 자기 육과 마음과 영을 위해 기도하여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놓고 일을 하는 것과 같다.

85. 기도는 정한 시간에 꼭 하되, 범사에 하여라. 기도할 때는 진정 진실로 해야 된다. 진실한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 온전치 못한 기도는 아예 땅에서 하늘로 떠나지 못한다. 진실한 기도다. 자기의 사연을 솔직히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진실한 기도를 천사를 통해 받으시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합당한 대로 들어주신다.

86. 육적 방법으로 육신과 마음을 편하게 하려 말고, 영의 방법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영을 편하게 하여라. 육도 마음도 편해진다.

87. 육적인 편안함은 '사망'이고, 영적인 편안함은 '생명'이다.

88. 인간의 '육체'는 물질체로 존재하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신과 생각'은 육체를 초월한 존재체라 육체보다 영향을 안 받는다. 정신세계로 육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관리해야 된다.

89.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 역시 신적 존재체인 '영체'보다는 약하다. 고로 자기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육도, 마음도, 영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 주와 일체 되어야 한다. 전능자와 구원주와 일체 되어야 온전하다.

<2011년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90. 주님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신다.

91.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한없이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차원 높여 오르기를 원하신다.

92. 발전하고 차원만 높이면 한없는 세계에 오르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93. 첫째, 기도다. 둘째, 주님이 깨우쳐 준 것을 자기 위치에서 행하는 것이다.

94. 기도하여 그 생각이 주님께 닿으면, 주님의 생각이 깨달아진다. 깨달은 것이 계시이며,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다.

95. 더 깊이 깨달으려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말씀하신다.
96. 육계는 겉, 영계는 속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97. 영계에 가도 겉과 속이 또 있다. 깨달음, 느낌, 감동은 영계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보는 것에 비하면 '겉'과 같다.
98.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속을 봐야 한다. 속이 알갱이다.
99. 겉은 속을 위해 존재한다.
100. 속 세계, 곧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101.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102. 영계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육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103. 껍질에는 알갱이가 없듯이, 육계에는 영계의 것이 없다.
104. 육계에서 육계의 것을 통해 영계의 것을 깨달아 볼 뿐이다.
105. 영계의 것은 영계에 가야 볼 수 있다.
106. 깨달음과 감동도 영계에 가서 보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과, 육계의 것을 보고 깨닫고 감동받는 것이 다르다.
107. 나 예수의 시간 1초를 만들려면, 너희 육으로 엄청난 시간 동안 행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가 영계에 와서 행하면 나와 일체 된 시간을 갖게 된다. 고로 영계를 뚫어서 생각하고 대화하여 깊은 진리를 받으라는 것이다.
108. 육계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다.
109. 육계에서도 오직 주님 생각으로 봐야 된다.
110. 죄는 '눈의 티'와 같다. 꺼내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된다.
111. 봄별보다도 겨울 햇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112. 배고플 때 모든 음식이 제맛이 난다.
113. 제때 잘 먹어야 성장하듯, 신앙도 성장의 때가 있다. 말씀의 양식을 충분하게 먹고 소화해야 된다.

<2012년 1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남녀가 사랑해서 생명이 잉태되어 10개월 동안 여자의 태 안에서 기르다가 낳았어도 관리 안 하면 즉시 죽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사랑해서 신앙의 생명을 전도하여 낳았어도 관리 안 하면 즉시 죽는다.
2.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다 놓았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자가 없으니 즉시 나갔다.
3. 섭리사에 관리하지 못해서 나가는 생명이 1년 동안 수천 명이다.

4. 엄마가 아기를 낳고 관리하지 않으려면 낳을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전도해 놓고 관리하지 않으려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
5.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어도 주님을 믿게 만들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6. 우리 모두 주님이 전도하고 관리하셨기에 구원받은 것이다.
7.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전도해 오시고, 가르쳐 주시고, 관리하시어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셨다.
8. 다 해 주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기 싫다고 하며 세상으로 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해서 믿다가 만다. 이같이 하여 지옥에 간 자들이 너무도 많다. 어쩔 수가 없다.
9. '관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10. 전도하는 것도 구원의 관리다.
11. 생명을 관리하다가 안 하니, 그 생명의 신앙이 바로 죽고 안 나오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보았다.
12. 처음에 어릴 때는 관리해 주지만, 다 큰 자들은 자기 관리를 안 하니까 신앙이 죽고 믿음이 파선된 것이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13. 나무도 처음에 관리할 때 물을 주고 퇴비한다. 그러면 자기가 뿌리를 내려 땅속 깊이 뻗어가서 자체적으로 수분을 빨아먹어야 된다. 처음에 관리해 줄 때 나무가 뿌리를 뻗어 내리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즉시 죽는다.
14. 섭리사에 왔으면 처음에 관리해 줄 때, 자기도 연구하며 말씀과 기도와 실천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즉시 신앙이 죽는다.
15. 생명을 관리하다가 너무 힘이 빠져서 그냥 놔두면, 그날부터 즉시 사탄이 그 생명을 관리하게 된다.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 사탄이 인사탄과 함께 뽑아서 사망권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같이 되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자기를 관리해서 돌아와야 산다.
16. 관리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17. 다른 생명의 관리 시간을 빼서 관리하면 다른 생명이 관리받지 못하여 어려워진다. 저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관리해 주시는 기간이 있다. 자기 때에 부지런히 관리받고 커야 된다.

<2012년 1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관리의 공적은 생명의 공적으로서 영원히 별같이 빛난다.
2. 관리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3. 관리 과정 중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해 주는 자는 관리자로서 너무 모르고 관리하여 그 생명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관리하는 자다.
4.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말씀'으로 교육해야 된다. 또한 '기도'하게 하여 그 영혼이 주님과

하나 되게 가르치며 관리해야 된다. 그같이 안 해 주면 신앙생활 한 지 40년, 50년이 지나도 관리를 안 해 주면 신앙이 죽는다.

5. 여름철이 되면 꼭 대장마가 있고 홍수가 있으니, 그것을 농부들에게 가르쳐 미리 예비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꼭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악함으로 환난을 일으키니, 모두 가르쳐 주어 미리 대비하게 하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

6. 전문의가 세밀히 아픈 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듯이, 생명에 대해 자세히 확실히 파악하여 신앙 관리를 해야 된다.

7. 적극적 관리다. 진실한 생명 관리다. 생명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관리다. 관리자의 관리로 생명이 살았다면, 그 관리자에게 한 생명을 살린 공적이 돌아간다.

8. 어떤 사람은 한 생명을 관리하면서, 그 생명에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는데 그 생명이 죽으니까 자기도 희망이 없다고 하며 충격을 받고 교회를 안 나왔다. / 죽은 생명은 고통을 받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왔다. 이를 모르는 관리자는 계속 세상에서 살았다. 이를 말해 주니 이제는 갈 용기가 안 난다고 했다. 겨우 관리해서 다시 나오게 했다. / 이것을 알아라. 관리하다가 그 생명이 죽어도 기도만 해 줄 것도 있다. 고통 받고 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9. 자기가 낳은 아기가 죽었다고 따라서 죽으면 안 된다.

10. 농부가 과일나무를 너무 사랑하여 아무리 관리해 줘도 과일나무는 꽃이 핀 대로 다 열매를 열지 못한다. 또 열린 열매도 가을까지 열린 대로 다 결실하지 못한다. 인생 구원도 그러하다.

11. 최선을 다해 주면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이다.

12. 남 관리도 중하지만,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 자기도 주님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낙심할 때, 자포자기될 때가 있다. 이런 때는 어떤 일이 너무 안 될 때, 계속 환난이 올 때, 마음은 원인데 해도 안 될 때다. 그러나 계속 안 되지 않는다. 계속 환난이 오지 않는다. 끝까지 가서 끝에 가서 쳐다보면,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끝에 가면 다 열게 된다.

<2012년 1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두 엄마가 있었다. 이들은 아기를 한 명씩 낳아 귀히 키우고 있었다. 아기는 간신히 겨우 걷는 어린 아기였다. 하루는 급히 화장실에 가게 됐다. 한 엄마는 아기가 싫어해도 화장실에 아기를 껴안고 들어갔고, 다른 한 엄마는 아기를 밖에 놓고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아기를 밖에 놓고 혼자 화장실에 간 엄마는 불안하여 빨리 볼 일을 보고 나왔는데, 아기가 없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기를 못 찾았다. 아기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간 엄마는 편히 시간을 보내고 나왔다. 누구의 결과가 좋으냐. ‘관리’는 아기 엄마가 아기를 관리하듯이 해야 된다.

2. 방에 아기를 놓고 순간 부엌에 갔다 오듯이 관리해야 된다. 아기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밥 먹다가 몇 시간 후에 와 보면 아기가 정상이 아니다.

3. 엄마가 물가에서 아기를 관리하듯이 어린 생명을 관리해야 된다.

4. 수천만 원짜리 시계와 목걸이를 처음 사서 쓰면서 관리하듯이 자기를 관리하고 생명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생명과 그 생명이 주님의 것이 되어 잘 자란다.

5. 관리는 마음 떼면 안 된다. 눈 떼면 안 된다.

6. 선생이 아기 때 일이다. 엄마가 감나무 밑에다 아이를 놓고 허리에 끈을 매어 기어 다니게 두고, 엄마는 30미터 떨어진

어진 곳으로 받을 때러 갔다. / 그 후에 독사가 와서 아이 옆에 와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구무럭거리며 손으로 독사를 잡으려 했다. 독사는 놀라서 고개를 뒤로 젖혔다. 다시 아이가 손을 내리면 독사는 아이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 엄마가 받을 때도 아이를 신경 쓰고 있으니 느낌이 이상하여 발에서 뛰어 내려왔다. 와서 보니 독사가 아이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순간 아이를 들어 옆에 놓고, 놀란 만큼 뱀을 때려잡았다. 그래서 선생이 살았다. / 관리자는 늘 신경 써야 그 생명에 대한 상황이 느껴져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차원 높은 정신적 관리와 영적 관리를 해야 생명을 각종 위기와 죽음에서 살린다.

7. 말씀을 근본으로 넣어 주고 본인이 시동 걸려 뛰게 해 주면서, 먹을 것으로도 잔치해 주고 입을 것으로도 날개를 달아 줘야 한다.

8. 관리할 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에 앞서, 그 생명이 어느 정도 컸으면 그에게 사명을 주어 행하게 해야 된다. 본인도 생명을 길러 봐야 관리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된다.

9. 신앙생활 한 지 3년, 5년, 7년 이상 된 자들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자기 관리가 아니다. 하나라도 사명을 해야 자기 관리가 된다. 일자리를 찾아라.

10. 혼자 많은 것을 하면 약하다. 전문 관리자는 한두 개 정도만 하면 된다. 관리받는 자가 일을 못 한다고 늘 마음 졸이면서 일을 안 맡기면, 그 청춘이 그냥 가 버린다.

<2012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처녀가 아기를 낳고 부끄러워서 문밖에 버리듯이, 어린 생명을 전도하여 낳아 놓고 교회에 혼자 기어 다니게 놔두는 자가 있다. 누구 아기냐고 물으면, 낳은 자가 외면하고 “누가 버린 아기네.” 한다.

2. 생명을 전도하여 낳고 기르다 힘들면, 아까워하지 말고 생명을 못 낳은 자에게 맡겨라. 주님의 생명이니 귀히 길러라.

3. 어떤 사람은 신앙의 불구자를 낳았다고 집어던지고, 무서워서 다시는 신앙의 아기를 못 낳겠다고 한다. 먼저는 유전자 온전한가 파악하고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4. 새 차도 관리 안 하면 쉽게 망가진다.

5. 관리할수록 육도 영도 빛나고, 저마다 주님의 사명을 해야 개성대로 자기 관리가 된다.

6. 어떤 사람은 전도자, 강의자가 지나치게 관리하고, 소속된 곳의 교역자가 관리하면서 너무 시간을 뺏으니 힘들어서 나갔다.

7. 처음 온 자가 부담되게 관리하는 것은 그에게 무거운 짐이다.

8. 전도된 자의 개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라.

9. 어떤 사람은 뱀을 잡아 기르면서 희귀종 산 뱀장어라고 하면서 기른다. 알고 길러라. 모르고 기르다가 잡아 온 자를 물고 간다.

10. 이미 타 종교의 교리가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자들은 1차로 말씀을 전해 주고, 2차로 다시 말씀을 전해 주면서 조정하여라. 이 시대 말씀을 전해 줘도 방계 역사의 교리가 머리에 꽉 차서 그것을 안 버리는 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버리게 하여라. 관리자가 그 사고를 버리도록 관리하면 그 시간이 아깝다.

11. 어떤 자는 관리되지 않아서 나갔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관리하여 모두 풀어 주시어 키운 후에 다시 전도자나 섭

리인에게 연결시켜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자들이 많다.

12. 욕을 쳐다보고 관리하지 말고,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 관리하여라. '복음'은 영을 구원하기 위해 전한다.

13.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관리하셨는지 알려면 성경을 보아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명자들을 통해 행하신 일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나와 있다.

14. 저마다 관리 방법이 다르니 서로 의논하고 연구하여라.

15.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사상을 넣어 주는 관리는 잘못된 관리다. 오직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사상을 넣어 주고 시대 말씀을 넣어 주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개성대로 쓰신다.

16. 주님 뜻도 모르면서 관리하는 생명에게 자기 마음대로 진로를 말해 주지 말고, 주님 뜻을 두고 깊이 기도하고 방향을 잡아 줘야 된다.

<2011년 1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집가서 1년 만에 어려운 고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아 키우기도 하는데, 2~3년이 넘었어도 그 쉬운 전도 하나 못 하여 혈혈단신으로 주님을 따라다닌다. (* 혈혈단신 :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운 홀몸)

2. 주님을 사랑해야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

3.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한 자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눈부시게 빛난다.

4. 세상에서 자기 홀로 살다가 천국에 간 자는 천국에서 빛이 나지 않아 눈에 띄지 않는다.

5.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곤고함을 겪다가, 하루는 누가 자기를 옳은 데로 인도할 자가 있는가 하고 거리로 나가 하루 종일 걷기로 했다. 그러다가 전도자를 만났다. 결국 자기가 찾던 인생길임을 알고 성장하여 주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됐다.

6. 높은 산을 오를수록 바위 절벽 천 년 술 작품들이 눈에 띄고, 보는 자의 깨달음도 깊어 마음에 담을 것이 있는 것이다.

7. 영계도 오를수록 보이는 것들이 차원 높게 감동되고, 그것을 마음 그릇에 담아 와서 내놓을 것이 있는 것이다.

8. 날이 좋아 햇볕이 쨍쨍할 때 구름같이 몰려들어 역사하던 꿀벌들이 비가 오니 모든 역사를 중지하고 쉬고 있다. 게으르면 진행하던 역사를 중지하게 된다. (기도하다가 잠들었을 때, 주님은 비가 오는 것을 보여 주셨다. 게으름이 비로 보임.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계시 잠언을 받았다.)

9. 낮은 산에 오르니 식물 작품이 눈에 띄고, 높은 산에 오르니 술 작품과 돌 작품이 눈에 띈다. (영계에서)

10. 저마다 정신일도 하고 생각을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영계의 문을 열어라. 육의 세계에서 온종일 배워도 영의 세계에서 일순간 보고 배운 것만 못하다.

11. 누구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준비된 대로 주신다.

12. 네가 입으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확실하게 묻고 구하여라. 그래야 주님이 주셔도 알 수 있다. 주님이 합당하면 주신다.

13. 받는 자가 확실하게 준비돼야 주는 자가 확실히 준다.
14. 확실히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면 모르고 문제가 생긴다.
15. 온전히 준비된 그릇대로 주님이 주신다.
16. 피곤은 쌓인 만큼만 풀어야지, 더 풀면 푸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오히려 손해다.

<2012년 1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님 주권권에 살아도 신앙이 죽어 있으면 곤고하다.
2. 새 역사에 살아도 자기 할 일을 못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3. 도시에 살아도 어렵게 살면 살기가 힘들듯이, 주님 주권권 안에서 살아도 자기 할 일을 못 하면 곤고하다.
4. 저마다 걱정하는 일을 주님이 생활 속에 깨우쳐 암시해 주셔도 모르고 못 믿으면, 걱정·근심·염려를 계속하며 살아간다. * 한 생명을 오랫동안 주님의 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어 살렸다. 어느 날, 그 생명에게 살려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편지가 왔다. 이때 주님이 주신 잠언이다.
5. 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손에 잡히면 확확 끌어내야 살릴 수 있듯이, 세상 어떤 처지에 처해 떠내려가는 자를 확확 잡아당겨 끌어내야 생명권으로 살린다.
6. 끌어내어 살릴 자를 못 살리면, 세상 각종 유혹의 급물살에 빠져 죽어 귀신이 되고 유령이 되어 산 자를 괴롭힌다.
7.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정신과 행실과 영이 사망권에 죽어 있으니, 살리면 다시 사는 자들이 있다. 이것이 '부활'이라고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셨다.
8. 물에 떠내려가는 자, 화재 속에 갇혀 있는 자, 세상 환난에 빠져 있는 자는 착 붙어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영혼과 신앙이 죽어 가면서, 죄와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자는 착 붙어 끌어내야 살릴 수 있다. 영성하게 하면 자기 애인도 못 살린다.
9. 낮은 물에 떠내려가는 생명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지 않으면 못 끌어내듯이 죄악의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도 그러하고, 세상 환난을 당하는 자도 그러하다.
10. 생명은 적극적으로 구해야 구해진다.
11. 떠내려가는 자의 마음과 보는 자의 마음이 다르다.
12. 떠내려가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구원하게 된다.
13.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낮은 물에 떠내려가는 자라도 못 끌어낸다.

<2012년 1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수정본>

1. 모기는 의인도 문다. 이는 모기가 의인 법으로 안 살고 모기 법으로 살기 때문이다.
2. 악인은 의인도 해한다. 이는 악인이 의인 법으로 안 살고 악인 법으로 살기 때문이다.

3. 악인은 하나님까지 원망하며 악한 짓을 한다. 악인은 하나님의 법으로 안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버릇없는 악인들을 잡아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라고 각종 고통을 주며 입에다 불을 먹인다.
4. 맛있는 것을 먹다 보면 남는 것이 없다.
5. 맛없는 것은 먹고 또 먹어도 남는다.
6. 하고픈 일을 하다 보면 속히 아쉽게 끝나고, 하기 싫은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난다.
7. 기록을 세워야 성공한다.
8. 죄 안 짓기 기록이다. 죄도 가지가지 센터별로다.
9. 온종일 미워하지 않기 기록이다.
10. 온종일 주님 사랑하기 기록이다.
11. 온종일,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음란한 일 안 하기 기록이다. 자위행위 안 하기 기록이다. 주님이 “하고 싶으면 오늘날만 해.” 라고 말씀하셔도 안 하기 기록이다.
12. 전도 잘하기 기록이다.
13. 절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실천하기 기록을 세워야 사탄을 전멸시킨다.
14. 절대 유혹 안 받기 기록이다.
15. 절대 서운함 안 타기 기록이다. 서운한 것이 있을 때 선생에게 말만 하면 합당하면 채워 준다. 배도 채워 주고, 목까지 충만하게 채워 준다.
16. 주님과 붙어 살기 기록을 갱신하여라.
17. 관리 잘하기 기록의 갱신자가 되고 금메달 자가 되어라.

<2012년 1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루에 기본 7번은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 그만큼 사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사탄이 언제 따라붙을지 모른다.
2. 시대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데 사탄이 방해하면 기도하여라. 사탄이 힘이 없어 몸이 무거워 땅바닥에 들어붙게 기도하여라. 악인도 그같이 되게 기도하여라.
3. 시대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의 눈을 찌르고 사탄의 심장을 찌르며 사탄을 멸하여라. 말하는 대로 말씀과 성령의 검이 날아가 사탄에게 쏘인다.
4. 인사탄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여라. 그들이 멸망하도록 기도하여라.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과 악인들을 놓고 기도하여라. 의인의 기도는 악인들의 운명을 좌우한다.
5. 절대 온전히 행하여라. 필사적인 기도다. 의인들의 기도는 기도하면 이루어지나, 악인들의 기도는 악을 버리고 의인들을 친 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6.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를 중시하신다.

7. 엘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으로서 절대 불의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고로 악을 멸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 기도해야 들으시고 악을 멸해 주신다.

8. 이 시대는 ‘관리 시대’다. 자기 관리, 형제 관리를 급히 할 시대가 왔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정된 역사가 오고, 사탄도 자기 뜻을 이루는 때가 온다.

9. 강가에서 집을 옮겨서 산으로 이사하면, 강이 범람하여 대지가 물바다가 되어도 방주를 만든 노아같이 상관없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 놓으면 사탄의 유혹과 방해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 노아는 하나님의 물 심판 때 물로 인하여 살았다. 노아에게 그 물은 악에서 사는 물이 되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물로 인하여 멸망을 받았다.

11. 자기 관리, 형제 관리는 마치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이 소돔 땅을 빠져나와 도망치는 것같이 중요한 일이다.

12.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전에 미리 알고 자기와 식구들을 살리려고 자기 관리를 하고 생명을 관리했으니, 곧 배를 만드는 것이었다.

13. 이 시대에는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 고로 시대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물 썰 틈 없이 받아들이고 행해야 된다.

14. 이 시대 주님의 신부들에게 섭리역사는 노아 때 방주와 같다.

<2012년 1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말씀’으로 선악을 쪼개신다.

2. 6000년 역사는 선악을 쪼개는 역사였다. 선한 하늘 아벨 편과 악한 사탄 가인 편을 쪼개셨다.

3. 선에서 악을 쪼개야 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쪼개는 것(析)’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이다.

5.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쪼개는 것(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한다. 쪼개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6.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쪼개셨다. 신약은 선이요, 구약은 악이다. 신약은 머리요, 구약은 몸이다. 머리가 몸을 끌고 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약과 성약도 쪼개서 역사하신다.

7. 때가 되니 하나님은 사명자 모세를 보내어 모세의 몸을 쓰시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을 쪼개셨다. 이집트는 악이요, 이스라엘은 선이었다.

8. 이스라엘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쪼개졌다. 남 유다는 선이요, 북 이스라엘은 악이었다.

9. 하나님은 선한 요셉과 악한 형제들을 쪼개어 섭리하시다가 요셉을 키우시고 후에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굴복하니 다시 합치셨다.

10. 하나님은 선악과 성악을 쪼개신다. 미워하면 쪼개신다. 싸우면 쪼개신다. 성악은 선 편이요, 선악은 부패되어 악 편이다. 성악은 머리로서 주님이 끌고 나가신다. 때가 되면 선과 악이 쪼개져 ‘선’은 하나님 편으로 오게 되고, ‘악’은 어둠으로 가게 된다.

11. 우리 마음속에도 ‘선의 생각’이 있고 ‘악의 생각’이 있다. 마음속의 선악을 쪼개서 악을 싹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실의 제물을 받으신다.

12. 선악을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대다. 고로 마음속에서 선악을 쪼개 악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2012년 1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이 죽으면 육체와 영체는 쪼개져 ‘육’은 땅으로 가고, ‘영’은 육신이 세상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 각종의 선과 악의 세계로 나뉘어 있는 영의 세계에 각각 차원대로 간다.

2. 인간의 ‘뇌’에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작용한다. 육신이 죽어 뇌 기능이 중단되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정신도 중단된다. 그리고 육에 속해 활동하던 마음, 생각, 정신은 혼과 함께 영에게 흡수된다.

3.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체는 쪼개지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영과 결합되니, 천국에 가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믿으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육신의 행위로 인하여 영이 천국에 온 보람을 느낀다.

4. 만일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마음, 생각, 정신이 혼과 함께 영에게 결합되어 지옥에 간다. 고로 영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육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며 후회한다. 만일 육신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영과 결합되어 지옥에 안 간다면, 육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모르니, 영이 육신의 행위를 생각하며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5. 만일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영체에 결합되지 않고 영체만 지옥에 간다면, 세상에서 육신이 살면서 겪은 것은 영이 안 겪었으니 육의 행위가 어땠는지 모른다. 겪은 자만 안다. 육이 악을 행함으로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혼이 영과 함께 지옥에 간 것이다. 고로 영이 세상에서의 육의 행위를 알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이다.

6. 영이 천국에 가면 그 마음과 생각과 혼도 영과 함께 천국에 가니,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고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고 하며 고생해도 그 말씀을 행한 것을 기억하며 영과 함께 기뻐한다.

7.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죽은 것은 뜻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모순이 나와,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된다.

8. 기성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정으로만 본다. 만일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면, 예수님이 안 죽고도 더 불같이 구원역사가 일어나고, 더 좋고 이상적인 구원을 이루었을 것이다.

9. 예수님은 메시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악을 행한 악인들을 위해, 그 시대를 위해,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신 것이다. 핵심 민족은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1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영체가 오지 않으셨고 성자를 보내셨는데, 성자도 본체인 영체로 오지 않고 ‘예수’의 육을 쓰고 오셨다. 재림 때도 예수님의 영체는 육체같이 나타나서 지상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신다. 성경대로 그 시대 합당한 중심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사람의 육을 쓰고 하시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것을 믿지 않고 또 불신하고 미워하면, 주님과 그 몸 된 사명자는 역사를 따르는 자들과 그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 시대 십자가를 진다.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11. 시대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개인 몇 명으로 인하여 지는 것이 아니다. /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그 순간 몇 명이 책임을 못 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듯, 이 시대 사명자도 법정에서 순간 몇 명이 책임을 못 하여 잘못 판단함으로 감옥에 가고 시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민족 전체가 행한 것이 악으로 기울어져 시대에 주님이 보낸 자를 맞지 않고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시고 모두 살리기 위해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여 보낸 자를 십자가를 지게 하여 희생시키고, 그를 따르게 함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 / 이 시대 십자가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십자가로서 사명자는 육적으로 시대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영적으로 시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 보냄을 받은 자의 고통은 보낸 자의 고통이다.

12. 지금은 예수님이 시대 사명자와 함께 시대 십자가를 지시면서 땅에서 이루는 육적 휴거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13. 이 시대는 마치 온 세상이 초상집 같은 슬픔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 예수님이 ‘영’으로 시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시대를 구원하여 신랑으로서 신부들을 육적 휴거 시키고 있으니, 모두 주님을 위로하며 뜻을 펴 줄 알아야 된다. 장사 지내는 기간에는 영광의 잔치를 안 하신다. (극비밀) * ‘析’은 하나님과 주님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를 깨우쳐 주시고, 오늘 잠언을 주셨다. 선생도 선생 이름 맨 끝자인 ‘석(析)’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있게는 몰랐다. 그동안 80% 알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확실히 알았다. 고로 선생이 그림과 사인에 ‘析’자를 쓰면 그렇게도 위력 있는 것이다. ‘야곱’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선생은 하나님과 주님을 상징하는 이름이다. 고로 ‘析’자를 써 주면, 사탄과 인사탄은 악이니 쪼개진다.

<2012년 1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이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연히 들려오기를 “나 여호와와 생각과 같아야 만족한다.” 하셨다. 사람끼리도 자기와 생각이 같아야 만족하며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심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와 생각이 같아야 만족하고 좋아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 생각과 같아야 만족하시고 좋아하심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 잠언을 쓰게 된 사연> 새벽에 여러 가지 생각이 걸려 왔다. 주님은 묻는 대로 대답하시니, 아예 정말 중한 것을 묻기 위해 신중히 생각했다. 한 가지를 물으면, 주님이 그 물음에 대답하시면서 그 이야기로 새벽 시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고로 내가 무엇을 묻느냐가 너무 중요했다.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상상도 못 할 존재자이십니다. 천국에는 수천억의 천사들과 천인들이 있어 하나님은 모두 다스리시며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찮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다.

2. 하나님께서 일순간 깨우쳐 주신 한 마디 말씀의 사연을 적다 보니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서 또 기도했다. “하나님의 한 마디 말씀을 기록하고 나니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같이 시간적 차이가 있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사십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인간도 ‘정신’으로는 번뜩 일순간 깨닫고 알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도 정신이 육체와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 여호와도 내가 지은 인생들 육과 같이 살려면 그러하다.” 말씀하셨다.

3. 또 하나님은 깨우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전능자 나 여호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는 기도다.” 하셨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대화 단계까지 기도하면, 10억 명이고, 20억 명이고 동시에 대화하신다.

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이미 행하신 일은 잘 말씀하신다. 곧 지나간 일을 물으면 잘 대답하신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비밀이라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의 종 선지자들과 그 일의 사명자들이 그 차원에서 물었을 때만 대답해 주신다.

6. 인봉한 은밀한 일들은 물어도, 대화를 꺼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7. 은밀하고 깊은 것들은 그 시대에 보낸 자에게만 대답하신다.
8. 깊은 영의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앞을 오고 간다.
9.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대 사명을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단계에 오고 가는 자만 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만이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신다. 고로 그의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만이 앞날의 비밀을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시대 사명자를 그 시대가 알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은밀한 것들을 시대 사명자에게만 말씀해 주신다.
10. 하나님과 예수님이 세상에 행할 큰 일들은 시대 선지자나 중심자, 혹은 그 일을 책임질 자에게만 말씀하신다. 마치 한 나라 임금의 그 일의 사명을 할 자만 조용히 불러 지시하듯 하신다. 임금 앞에 오고 가는 자가 드물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깊이 오고 가는 자는 드물다.
11. 어떤 일은 땅에 보낸 사명자도 모르게, 세상 그 누구도 모르게 행하신다.
12. ‘재림의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는 말씀은 성삼위는 그 일을 행하시니 알지만, 육체의 몸은 모른다는 말이다.
13. 우리 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비밀을 많이 알지만, 우리 육은 모른다.
1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간이지만,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면 하나님이 만족하고 기쁘고 좋다고 하셨다.
15. 하찮은 인간이라도 성삼위와 뜻이 같으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삼위와 통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 누구보다도 삼위와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16. 전능하신 성삼위의 말씀은 하루 새벽에 한 마디다. 이 한 마디가 나에게는 1백 잠언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1천 잠언이 되기도 한다.
1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벽에 하신 한 마디 말씀의 줄기를 따라 기록하니, 100마디 잠언이 되었다.
18. 하나님의 한 마디 말씀 속에 100가지 잠언의 말씀이 들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하기에는 새벽 시간이 짧았다.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9. 백성 중의 한 여자가 한 나라의 왕을 기쁘고 만족하게 한 조건은 돈도, 보화도, 어떤 노래도 춤도 아니다. 왕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없는 것이 없다. 이 여자가 왕을 만족하게 해 줄 유일한 길은 왕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왕을 사랑하면 여자도 만족하거니와 왕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그러하다.
20. 한 여자가 그 나라 황태자에게 이끌려 휴거될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주님을 맞아 땅에서 육 휴거를 이루는 길도 ‘오직 사랑’밖에 없고, 영 휴거를 이루는 길도 ‘오직 사랑’밖에 없다. 사랑 외에는 주님께 이끌려 갈 수 없다.
21. 휴거의 은밀한 비밀은 ‘사랑’이다. 한 나라 임금의 아들인 황태자가 잠깐 시골에 왔을 때 그에게 이끌려 갈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신랑으로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 이끌려 갈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
22. 예수님은 사랑의 존재시라 진실한 사랑을 하면 주님께 이끌려 간다.

23. 존재물의 비밀을 알아야 그 존재물과 일체 된다.

24. 한 물체가 있는데, 수만 가지 물체 중에 오직 한 가지만 거기에 들어붙을 수 있다. 지남철에게는 어떤 물체만 들어 붙겠느냐. 나무도, 돌도,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돈도, 집도, 환경도, 명예도, 권세도, 인물도, 미(美)도, 좋은 책도, 좋은 그림도, 분재도, 작품도, 여자도, 남자도 지남철과는 안 붙는다. 오직 '쇠'만 붙는다. 이와 같이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주님께 들어붙어 주님께 이끌려 육 휴거도 되고 영 휴거도 된다. '온전한 사랑'은 휴거의 비밀이다.

25.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는 이중적 사랑은 참사랑이 못 된다. 오직 주님만 진실로 사랑해야만 주님께 이끌려 휴거되어 그 영이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 잔치하고 사랑 잔치하며 살게 되고, 그 육신도 땅에서 휴거된 몸으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며 지상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26. 벼슬을 하려면 벼슬자리를 뽑는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의 답을 알아야 답을 써서 벼슬을 한다. 이와 같이 2000년 동안 기다린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맞는지 답을 알아야 주님을 맞고 휴거될 수 있다.

27.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확실히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

28.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지 알아야 맞을 수 있다.

29. 동쪽에서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알아야 된다. 먼저 동쪽이 어디인지 알아야 된다.

30. 해 뜨는 시간이 되었으나, 그 날 비가 오고 하늘에 구름이 짙 끼었으면 해가 떴어도 안 보이니 모른다. 고로 해가 뜨는 것을 알려면 첫째, 종전에 해 뜨는 시간을 알면 된다. 해가 안 보여도 해가 뜨면 기온 변화가 있다. 아무리 구름이 끼어도 해가 뜨면 밤보다 환하다. 비바람이 그친 후에 태양이 보인다. 그때는 너무 늦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태양이 보인다. 이와 같이 영의 차원을 높이면 주님이 보인다.

31.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도 영체가 오시니 사람의 육의 눈에는 안 보인다. 또 시대가 험하고 악하여 환난과 핍박의 먹구름이 끼면 준님이 안 보인다. 그래도 지난 과거 역사같이 때를 계산하여라. 구약 4000년이 끝나고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와 같이 신약 2000년이 끝나면 약속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초림 때 예수님은 육의 사람을 쓰고 오셨고, 재림 때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오신다. 주님은 영체로 오시어 세상에서 미리 예정하고 키운 자, 곧 정신과 마음이 같은 자의 몸을 육으로 쓰고 오신다.

<2012년 1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체의 삼위가 아니고, 각 몸체의 삼위의 신이다.

2. 주님 안에서 살아도 자신이 '육'에 속해 살 때도 있고, '영'에 속해 살 때도 있다.

3. 육에 속해 살아도 자신은 주님을 믿고 사니 주님 뜻대로 산 것으로 안다.

4. 주님을 믿고 살아도 육에 속해 산 것은 그때 그 순간마다 주님과 같이 행한 것이 못 된다.

5. 육에 속해 산 것은 육의 생각과 육성으로 살았기에 그 순간은 주님의 마음과 일체 되어 산 것이 못 된다.

6. 영에 속해 살아야 주님과 생각이 일체 되어 주와 같이 산 자가 된다.

7. '영에 속해 산 자'란, 주와 생각을 같게 하여 산 자다.

8. '영에 속해 산 자'란,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알고서 주님과 일체 되어 주와 함께 행한 자다.

9. 자기가 생각한 것은 욕에 속한 것이다.
10.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생각한 것이 영에 속한 생각의 삶이다.
11. 사람들은 주님을 믿어도 거의 욕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간다.
12. 영에 속한 생각을 하려면 먼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비워라.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하여라. 주님의 생각은 자기 생각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받는 것이다.

<2012년 1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불은 가까이할 때만 뜨겁다. 사랑도 그러하다.
2. 사랑은 욕으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가까이할 때만 느끼는 것이다.
3. 생각을 해야 느낀다.
4. 생각을 해야 보인다.
5. 생각으로 부수기도 하고, 생각으로 건설하기도 한다.
6. 생각을 해야 잊은 것도 생각이 난다.
7. 생각을 깊이 하면 평소에 자신이 보고 뇌에 저장된 것이 느껴지고 보이기까지 한다. 또한 멀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생각'을 통해 보이기도 한다.
8. 자기만 보이고 느끼기도 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상대와 같이 생각이 교통하게 되기도 한다.
9. 스스로의 생각은 자기 뇌에서 생각이 작동하는 현상이다.
10. 자기가 신령하면 영계에 들어가서 상대를 보기도 하고, 자기 위치에서 상대를 멀리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와 대화는 못 한다.
11. 정신세계에 들어가 깊이 생각하면 상대가 멀리 있어도 그와 통한다. 이때 신의 경지에 올라 신의 세계를 접한다. 하나님은 '욕'에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고로 '정신'으로 통하는 것이다.
12.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사 자기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영계에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교통하게 된다. 인간은 욕에 속하고 무지하여 잘 모른다. 생각과 영으로 통해야 된다.
13. 누구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부르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영이라 즉시 아신다.
14. 예수님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서 보신다. 인간의 욕은 한계가 있어서 보기는 하는데, 통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15.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보는 자는 보고 느끼는데, 상대가 모르니 못 통한다.
16. 서로 생각하고 같이 의논하면, 욕신은 멀리 있어도 서로 생각이 통할 수는 있다.

17. 주님을 통해서 상대에게 자기 생각이 전해진다. 그것이 '기도'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이 송신탑 역할을 해 주시어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전해 주신다.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긴장하고 재촉하면서 하면 금방 한다.
2. 주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때를 중심해서 찾아오신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수시로 말씀하시어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전달된다.
3. 주님은 각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 하루에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계속 그 마음에 하실 말씀을 보내신다.
4. 이 잠언의 계시를 쓰는 이 시간도 기도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주님은 인간의 때를 맞추지 않으신다. 주님의 때를 맞추신다.
5. 계속 바쁘게 공적인 일을 하고, 지금은 순간 밥을 먹는 때다. 그래도 다 제쳐 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때를 맞춘다.
6. 주는 자는 주는 자가 원하는 시간에 준다. 그때 받는 자가 열 일 제치고 안 받으면 못 받는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하다.
7. 주님은 계시하실 때 자세하고 세밀하고 은밀하게 보이신다. 고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보이시며 계시하실 때, 왜 그 같은 환경과 그 사람을 보이셨으며 왜 그렇게 보이셨는지 연구하고 풀어야 된다.
8. 자기 처지가 그러하니 그러한 배경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신다. 그로 인하여 자기와 상대와 주님의 입장을 깨우쳐 주신다.
9. 태양이 항상 비추듯이 주님은 항상 온 인류에게 하실 말씀을 비추신다. 각자 주님의 영적 단계에 올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과 통하면, 그 말씀의 빛과 통하게 된다.
10. 주님께 진정 자기 사연을 한 마디씩 하면서 그렇게 300마디, 700마디를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은밀히 마음에 들려온다. 그 소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답이다. 신의 음성은 간단하고, 그 느낌은 마음과 혼을 감동시키며, 마음으로 느껴져 전해진다. 신의 음성은 육의 귀로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귀, 깨달음의 귀로 들려온다.
11.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마음속에서 세상 잡음을 없애야 하고, 마치 화살을 만들어 과녁판에 꽂듯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사랑으로 만들어 계속 주님께 꽂아야 된다.

<2012년 1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것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다.
2. 지구 세상에 70억 명이 있어도 상관하지 말고, 자기 것은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
3. 자기가 기도해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줘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4. 기도는 주님과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자기 것은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
5. 한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할 때는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기 몸과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와 같이 하나

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앞에 자기가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된다.

6. 자기 몸과 마음으로 사랑할 자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없듯이, 기도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7.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다.

8. 기도 시간은 예수님과 사랑하는 시간이다.

9. 기도 시간은 성령님과 사랑하며 대화하는 시간이다.

10. 기도하면 전능자의 마음과 교통이 되고, 그 기도예 따라 하나님은 결정하신다.

11. 자기를 위해, 형제를 위해, 가정을 위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여라. 또한 악한 자들과 사탄들을 놓고 기도하여라. 기도는 각종으로 하나하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놓고 하는 것이다.

12. 한 사람이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민족과 세계의 일을 행하신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13. 하나님은 기도한 자에게 하늘의 깊은 비밀과 앞날의 비밀을 보여 주신다.

14. 기도하는 자는 서로 육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통한다.

15. 기도로 하나님 나라까지 통한다.

16. 기도로 하나님은 너무도 엄청난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기도의 주권이다!

17.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집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다.

18. 사람으로도, 대군으로도, 전쟁의 무기로도 못 하는 것을 '기도'로 하게 된다.

19.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곤란한 일도 기도할 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실행하신다.

20. 전 세계가 애간장 태우며 해결하지 못했던 최고의 악인도 기도할 자가 3년 동안 기도하니, 하나님은 심판하여 없애 버리셨다. 온 세계 70억 명이 다 기도해도 의인 한 명의 기도의 위력을 못 따라간다.

<2012년 1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과수원지기가 나무마다 퇴비를 하면 건강한 나무일수록 영양분을 잘 흡수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러나 선을 행할수록 그 사랑을 더욱 잘 흡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더욱 잘 흡수한다.

2. '말씀'만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3.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 고로 누구든지 성삼위를 사랑해야 통하고 그 사랑을 흡수할 수 있다.

4. '사랑'은 마치 만물에게 '물'과 같다.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5.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 하시면, 인생은 바로 죽는다.
6.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죽은 자도 바로 살아난다.
7. 사랑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
8. 진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죽는다.
9. 사랑에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10. 밥을 주고, 젖을 주고, 재워 주고, 입혀 주고, 돈을 줘도 사랑 없이 기르면 그는 죽은 인생이다.
11.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12. 전능하신 성삼위의 ‘사랑’ 때문에 우주 만물과 지구와 인생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13. 태양 자체가 불과 빛이듯이 성부, 성자, 성령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14. 사랑이 없는 곳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창조하셨다.
15.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다.
16. 참사랑은 늘 첫사랑을 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17. 사랑이 식으면 끓던 물이 식은 것 같아서 기능을 못 한다.
18. 사랑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사랑은 차원을 높여야 식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할수록 희망이다.
19. 사람은 지구상에 있는 귀한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다 하나님이 주시면 처음에만 좋아서 쓰다가 나중에는 버린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만 가지고 성삼위를 사랑하면서 살아도 그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근본체로서 그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삼고 사는 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21. 전능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22.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쓰다가 버리지만, 사랑을 가진 자는 안 버리고 평생 귀히 쓴다.

<2012년 1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글은 백지 위에 쓰듯, 말씀은 마음 백지 위에 받는 것이다.
2. 지옥 쪽은 갈수록 나빠지고 고통이 오고, 천국 쪽은 갈수록 좋아지고 기쁨이 온다.
3.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산인가, 자기 상태를 감정해 보아라.
4. (주 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나의 것이 된다. 나의 것이 아니면 공동의 것이다.
5. 자기 울안에 샘을 파야 자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 샘물이다.

6. 마음을 뺏고, 시간을 뺏어야 자기 것이 된다.
7. 영계나 육계나 모두 마음을 빼앗아 자기를 유익하게 한다.
8. 주님은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께 향하게 하신다.
9. 상대가 좋아하고 사랑할 때 대답하고 행하여라. 자기가 좋아할 때 행하는 것은 자기 주관으로 행하는 것이다.
10.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혼자 책임을 해도 되는 일은 자기가 좋아하고 감동될 때 행해도 된다. 그러나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와 같이 해야 할 상대성 일들은 상대가 좋아하고 상대의 마음이 감동될 때 행해야 된다.

<2012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모두 자기 것인데 뺏긴다.
2. 저마다 시간을 뺏어 쓰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서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3. 창조주 하나님은 저마다 시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 주셨다. 고로 자기만 시간을 뺏어서 쓰면 시간이 충분하다.
4. 시간은 뺏어 쓰기다.
5. 시간은 빼앗지 않으면 항상 뺏긴다.
6. 시간은 뺏기만 하고 안 쓰면 다시 뺏긴다.
7. 쓸 곳이 없는 시간은 뺏어도 다시 뺏긴다.
8. 할 일이 없는 자에게 시간은 왔다가 그냥 가 버린다.
9. 시간을 네 애인이라고 생각하여라.
10. 자기를 위해 할 일이 없다는 자는 너무도 모르고 사는 자다.
11. 사망길을 가는 자들은 시간을 합당한 곳에 안 쓰고, 헛된 곳에 쓰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시간은 쓰는 대로 흘러가고,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기 때문이다.
12. 천국 생명길을 가라. 평생 자기를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고도 많다.
13. 할 일을 안 하는 자는 할 일이 없다. 일은 해야 일이 보이고 일이 생긴다.
14. 평생 자기를 위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할 일이 많다.
15.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죽은 자는 할 일이 없다.
16. 산 자는 행하는 자다. 산 자는 할 일이 너무도 많다.
17.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는 할 일이 너무 많다.

18. 주님의 몸이 되어 하는 일은 주님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해 주는 것이니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하고 귀한 일이다.

19. 주님의 일은 세상에서도 남아지고, 천국에서도 영원무궁토록 남아진다.

<2012년 1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못 찾아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천국 가는 일을 안 해서 영원히 고통 받는 지옥에 간다. 그런데 할 일이 없다고 한숨 쉬며 놀고 산다.

21. 놀기만 하는 것도 오래 하면 일하는 것보다 더 지겹고 고통이다.

22. 구원길을 찾아 영원히 할 일을 찾아 행하면 낙이다. 기쁨이다. 보람이다. 행복이다.

23. 일도 육체만 위해서 하면 희망이 없고 지겹고 고통이다.

24. 영원한 일을 해야 영혼까지 즐겁고 기쁘다.

25.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여라.

26. 사람들은 온종일 피곤하게 일을 해도 일순간 얻고 누리고 마는 허무한 일들만 한다.

27. 몸도 마음도 오직 영혼을 위해 행해야 기쁨이고, 희망이고, 즐거움이고, 영원하다.

28.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이 최고로 먼저 할 일이다. 그 일을 위해 자기 육을 존재시키면서 살아야 한다.

29.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 자기 영혼을 위해 행해야 주님이 도우시고 같이 행하신다.

30.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 천성을 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우선으로 꼭 해야 할 일을 못 깨닫고 잠만 자고 있다.

31. 모르면 '무'로 시간을 보내고, 알면 '천금 시간'을 보낸다.

32. 시간은 천금 같지만, 천하게 쓰면 천하고 귀히 쓰면 귀하다.

33. 그 시간 그 날 할 일이 너무 많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황금 같은 시간이 되고, 은 같은 시간이 되고, 동 같은 시간이 되고, 철 같은 시간이 된다.

34. 제때 할 일을 하는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다.

35. 시간을 애인같이 껴안고 썬다.

36. 시간과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시간을 선택한다. 돈보다 더 귀하게 시간을 쓸 곳이 있기 때문이다.

37. 시간이 황금임을 깨닫고 시간을 귀히 써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1시간도 더 주지 않으신다.

38. 시간은 자기가 아껴 써야 더 얻을 수 있다.

39. 할 일이 많다고 한정된 인생을 오래 살려고 하지만 말고, 시간을 아껴 많이 써라. 그러면 인생 오래 사는 것과 같다.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40.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주님과 같이 하면서 시간을 쓰면, 하루의 시간을 평생을 좌우하는 시간으로 쓰게 된다.

41. 지혜를 받고 시간을 써야 천금같이, 황금같이 귀히 쓴다.

42.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43. 시간은 뛰는 자에게는 느리게 가고, 걷는 자에게는 빨리 가고, 잠을 자는 자에게는 날아간다.

44.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아가면, 하루를 살아도 3일을 산 자와 같다.

45.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그의 몸이 되어 시간을 쓰면 당세는 물론 수백 년 후, 1000년 후까지의 일을 미리 해 놓게 된다.

46. 몸으로 하면 부지런히 열심히 해도 2배, 3배 더 행하지만, 지혜와 정신으로 하면 10배, 100배 행한다.

47.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도 3년 동안 역사를 펴셨지만, 2000년의 일을 해 놓고 가셨다.

48. 영적으로 하여 시공을 초월했기에 1년을 700년만큼 쓰신 것이다.

49. 3년 동안 육신을 가지고 공생애 역사를 펴셨는데 그로 신약역사가 2000년 동안 펼쳐져 나갔고, 성약역사 1000년 동안의 기틀을 마련해 놓고 가셨다. 고로 더 세밀히 보면 1년에 1000년 동안 할 일을 해 놓으신 것이다.

50. 영적으로 일을 하고, 주님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면 하루에 1000일 동안 할 일을 하게 된다.

51. 영의 시간 1시간이 육의 시간 1000시간이다.

52. 영적으로 시간을 쓰면 육계의 시간을 쥐고 다스린다. 왜냐하면 영의 시간은 육의 시간의 1000배 비율이기 때문이다. 고로 누구에게든지 시간은 충분하다.

53. 전능자 하나님은 영의 시간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선생도 육의 시간을 뺏어서 영의 시간, 짧은 시간으로 1번부터 53번까지 일순간에 잠언을 썼다.)

54. 육적으로 뺏긴 시간은 육적으로 못 뺏는다. 영적으로 들어가야 뺏을 수 있다.

55. 뺏긴 생명도 기도하고 영계에 가서 뺏어 와야 뺏어 오게 된다.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너를 부른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사랑' 때문이다.

2. 사랑의 문 열쇠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3. 사랑도 같은 차원에서만 하면 지루하다. 차원을 높여라.

4. 현실의 자기 마음, 생각, 정신과 행실로 인하여 자기 미래가 그대로 만들어져 그 삶으로 가게 된다.
5. 사랑하는 자의 목적은 ‘사랑’이다.
6. 자기 몸이 주의 몸이 되게 하여라.
7. 음식을 만들어 맛있게 요리해서 먹듯이, 자기 몸을 그냥 드리지 말고 만들어서 사랑하는 주님께 드려라.
8. 우리 몸은 살아 계신 주 하나님의 성전이다.
9. 조직이다. 조립이다. 그리고 같이 달리는 것이다.
10. 사랑하는 자끼리도 ‘대화’로 만남이다.
11. ‘기도’는 주와 대면이다. 주와 만남이다.
12. 젊었을 때 속히 하여라. 인생 매일 늙는다.
13. 오래 산다고만 해도 일을 많이 하고 영이 변화되어 이상적인 영이 되는 것이 아니다.
14. 사람과는 ‘말’로 대화하고, 주님과는 ‘신령한 영체’로 영의 대화를 한다. 기도는 ‘말’로 하고, 주님과 통하는 것은 ‘영’으로, ‘마음’으로 통한다.
15. 밤에 안 보이는 것도 밝아지면 보이고 빛이 나면 보이듯이 기도하면 보인다. 먼저 느낌, 다음은 영감, 그다음은 깨달음, 그다음은 현상이 여러 가지로 보인다.
16. 자기 이야기만 하면 상대와 대화를 못 한다.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때도 주님 이야기를 해야 전초가 되어서 주님과 통하게 된다.

<2012년 1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7. 너도 나도 잘못 없다. 중간에서 말을 전해 준 자가 문제 되어 너도 나도 서로 오해하게 되었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
18. 혼자 생각에 슬퍼하며 울지 말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맞춰 보아라.
19. 사랑하면 못 건드린다.
20.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아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네 마음을 알고 대하여라.
21. 주님이 만족하시는 것을 해 드려야 주님이 만족하신다. 때와 장소와 처지가 항상 다를 수도 있다.
22.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고, 마음에서도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 마음을 주고 사랑하면서 산다. 이런 사랑은 창녀 사랑이다.
23. 사랑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자라야 최고 신부요, 주님의 사랑의 대상체다.
24. 남들이 아무리 좋아하며 “저 여자 최고다!” 해도 그가 사랑하는 주님이 만족하지 못하시면 그는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다.

25. 만족할 만큼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게 된다.

26. 온 세상 모두 비웃으며 “저 사람은 모자라. 별로야.” 해도 그를 사랑하는 자가 만족하면 그는 최고로 행복한 자다.

27.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만족하여 미치도록 좋아하고 사랑하면, 누가 자기를 헐뜯어도 악평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28. 만인이 자기를 칭찬하며 “멋있다. 예쁘다.” 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좋아할지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알아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타격이요, 걱정이요, 고민이요, 번민이요, 고뇌요, 고독이요, 쓸쓸함이요, 곤고함인 것이다.

29.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서 만족하면 끝난 것이다. 그러면 만족이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사랑이며, 미련 없이 인생을 불태우며 미쳐서 뛰어도 정상이다.

30. 주님께 하나만 맞춰 끼우면 다른 것도 다 맞춰지는데, 다른 것만 맞춰 끼우려 하니 주님과 맞춰지지 않는 것이다.

31. 기계의 엔진 뺏다가 다시 제 위치에 끼우려면, 핵 나사만 정확히 끼우면 나머지는 정확히 들어간다. 주님께도 그러하다.

32. 주님께 욕 먼저 맞추려 하지 말고, 마음 먼저 주님 마음에 끼워 맞춰라.

<2012년 1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영광은 찬란하게 와도 기회는 찬란하게 오지 않는다.

2. 기회는 특별하게 오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거의 자기 기회를 놓친다.

3. 기회는 은밀히 오고 작게 온다.

4. 작고 은밀한 기회를 잡아 행함으로 점점 알게 된다.

5. 영광은 그 기회를 잡고 행했을 때 행한 만큼 받는 것이다.

6.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 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7. ‘기회’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다.

8. 기회가 왔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 하게 된다.

9. 모든 것은 시간을 통해 얻어진다.

10. 기회를 모르고 살면 기회가 와도 모른다. 지혜의 말씀으로 기회를 배워라.

11. 미련한 자는 기회가 와도 모른다. 지혜자가 말을 할 때 민다가도 다시 자기 주관 본래 생각으로 돌아가 버린다.

12.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다.

13.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까이 대해 줄 때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다.

14. 새벽 이른 시간이 하루 온종일 시간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15. 곤고한 때가 자기 사연을 주님께 고하며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다.
16. 재림과 휴거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자기 육과 영을 만들어 변화시켜 휴거시킬 기회다.
17. 먼저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고통이 온다.
18.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영광이 온다.
19. 기회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제쳐 놓고 그것에만 전념해야 된다.
20. 기회가 왔어도 행하기는 행하는데 그것이 기회인 줄 확실히 모른다. 그러니 마음과 몸을 딱 붙여 발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고 캐내듯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회가 오면 미쳐서 그 기회를 잡고 행해야 얻을 수 있다.

<2012년 1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회가 항상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의 미련한 생각이다.
2. 기회는 그때뿐이다.
3. 어떤 기회는 초를 다투며 순간 지나간다. 어떤 기회는 10분, 30분, 1시간 있다가 지나간다. 어떤 기회는 3일, 7일, 21일, 한 달, 3년, 7년, 10년 있다가 지나가는 것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4. 짧게 있다가 지나가는 기회를 잡아 온전하게 행한 자는 그로 인하여 얻고,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평생 쓰기도 하고, 소원을 이루기도 한다.
5. 한 사람은 사랑의 기회를 알고, 다른 한 사람은 역시 사랑의 그 기회를 희망하는 자인데 그것이 사랑의 기회인지 모른다면 아는 자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6. 기회가 오면 자기가 기다렸던 애인이 나타난 것같이 적극적으로 잡고 행해야만 기회를 확실히 알고 행하여 얻게 된다.
7. 무지하면 기회를 놓친다.
8. 기회의 문은 처음에는 문틈같이 아주 작다. 행하면서 열고 들어가야 문짝만 하게 커진다.
9. 모르고 행한 기회, 만족하지 못하게 열고 미련 두고 다시 그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10. 애를 태우다가 기회를 만나야 미련 없이 원하던 것을 행한다.
11. 기회가 와도 처음에는 몰라서 잡지 못하고, 두 번째는 알고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여 제대로 잡지 못한다. 세 번째에 기회가 오면 가중된 조건을 세워야 하기에 제대로 잡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12.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기회가 오기를 대망하며 기회가 태양같이 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기회는 구름 속의 달같이 은은하게 온다. (*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초안 보여 주고 설교자가 초안 안에 있는 잠언을 읽어 준다. 이어서 새로 그린 삽화 보여 주면서 설교자가 말한다.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삽화 안에 있는 잠언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초안 속 잠언 : 기회는 태양같이 찬란하게 오지 않는다. 구름속의 달같이 은은히 온다. 기치를 벌인

군인같이 기다려야 된다.)

13. 구름 속의 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두운 구름을 입김으로 불어 걷어치워야 된다. 그래야 만월을 볼 수가 있다.
14. 기회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잡은 자도 처음에는 자기가 행하면서도 잘 모르고 평소보다 좋으니까 ‘오늘은 날이 좋은가?’ 하고만 생각한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잘 모른다. 행하면서 점점 알게 된다.
15. 기회는 처음에는 마치 아기가 오듯이 하여 관심 없이 대하게 된다. 처음에는 기회가 아기 오듯이 하지만 점점 큰 사람이 나타나듯 할 것인데, 그다음은 모르고 계속 아기 대하듯 대하니 기회가 나타나다가 만다.
16. 기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좋은 대로 안 온다. 대개 차질이 있게 온다. 잡고 확인하여라.
17. 기회는 한 번에 크게 안 나타난다.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18. 기회는 자신이 알고 적극적으로 대하고 열심히 행해야 태양같이 나타난다.
19. 처음에는 기회가 초저녁에 뜬 별같이 나타난다. 그것에 매달려 쫓고 행하면 달같이 나타난다. 더 쫓고 행하면 해같이 나타나 희망의 찬란한 낮을 맞게 되고 수고하여 모든 것을 얻게 된다.

<2012년 2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께 기도하고 대화하며 평소 기다린 애인을 기다리듯 해야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 기회가 왔을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맞고 좋아하고 행해야 자기 때에 소망을 이룬다.
2. 하나님도, 주님도, 주님이 시대에 보낸 자도 시대의 모든 자들이 기다리는 기회다. 믿고 따르는 만큼 시대에 따라 별같이, 달같이, 해같이 나타난다.
3. 기회가 왔다고 거리와 광장과 곳곳에서 소리치며 외쳐도 기다리는 자들이 모른다.
4. 기회는 오는 시간과 때가 있어서 안 잡으면 다음 곳으로 가 버린다.
5. 힘들고 고생됐어도 돌이켜 보면 그때가 기회였다.
6. 기회는 처음에 영같이, 주님같이 눈에 안 보이게 온다. 기회는 마음으로 오니 마음이 구름 없는 하늘같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별 같은 기회, 달 같은 기회, 해 같은 기회가 오면 안다.
7. 마음에 자기중심, 자기 의지, 교만, 권위, 자기 사랑, 자기 죄, 자기 습관과 주관의 먹장구름을 없애고 자기 마음을 깨끗한 흰 구름으로 만들어야 기회가 와도 보이고,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와서 행하게 된다.
8. 기회가 왔을 때 기회의 뜻대로 행해야 기회를 얻게 된다.
9. 기회에 자기 뜻대로 행하면 법칙을 벗어나 기회는 떠나간다.
10. 기회의 성격과 마음에 따라 행하고, 기회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희망을 얻게 된다.
11. 기회는 사랑 덩어리다. 기회가 왔을 때 한눈을 팔면 안 보인다.
12. 기회를 원했어도, 기회가 왔어도, 기회를 얻었어도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와 같이 살 줄을 모른다.

13. 기회가 왔을 때 마치 짝사랑하던 자가 돌아왔다 생각하고 전심으로 대하고 좋아서 꼭 껴안고 밤낮으로 놓지 말고 행해야 된다.

14. 무지하여 기회를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하여 그 귀한 기회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다닌다.

15. 기회는 기회를 애인같이 사랑하고 좋아할 자를 기다리고, 그의 눈에 띄게 한다.

16.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가 다시 올 때까지 홀로 살아야 된다.

17. 기회는 지혜와 사랑으로 품속의 여인같이 사모하며 살아야 기회가 왔다가도 멀리 안 가고 같이 살게 된다.

18. 기회가 왔을 때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기회는 심정 상해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며 점점 떠나간다.

19. 잘못된 것이 있으면 기회에게 용서를 빌고 심정을 풀어 주고 회개하여라.

20. 기회는 자기의 희망을 이루어 주는 최고의 사람과 같다. 기다릴 때는 하늘같이 대하여 기회가 오면 처음에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동네 아저씨같이 대하니 기회가 떠나간 것이다.

21. 이 시대, 이 기회다. 이 기회 놓치면 시대의 해가 저서 기회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다.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회는 나의 짝이다. 나의 사랑이다. 기회는 엄마 역할도 해 주고, 형제 역할도 해 주고, 때로는 아들딸이 되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 위로해 주기도 하고, 피곤도 풀어 주고, 항상 사랑의 불이 식지 않게 뜨겁게 해 주기도 한다.

2. 기회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갖춰진 아름다운 여인이라 생각하고 맞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며 진수성찬을 대접하여라. 행여 기회가 화를 내더라도 금덩이를 토해 내는 것으로 알고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고 무조건 환영해 줘야 된다. 무조건 기쁨이 돼 줘야 된다.

3. 어떤 기회는 옷도 사 줘야 된다. 밥도 해 줘야 된다. 씻겨 줘야 된다. 신발도 사 줘야 된다. 아프면 빗내서라도 병원에 데려가 책임지고 고쳐 줘야 된다. 어떤 기회는 돈도 없어서 돈도 줘야 된다.

4. 어느 때는 기회가 공주와 왕자가 될 수도 있으니, 좋아하고 섬기면서 받아 줘야 된다. 기회가 오면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 전적으로 사탄을 멀해 버려야 기회가 제재를 안 받고 편히 마음을 놓고 희망을 이루어 준다. 기회가 오면 악한 자가 막고 방해하니 기도해서 멀해야 된다. 때로는 기회가 악한 자들을 추격하여 격파하고 오기도 한다. 기회가 무서운 존재자가 될 때도 있다. 그 기회를 알아주고, 그 기회와 같이 행해 줘야 된다.

5. 게으르면 기회는 앉아 있다가 질색하고 가 버린다.

6. 기회는 말에 너무 민감하다. 고로 말조심해야 된다. 말을 거칠게 하면 기회가 놀라서 나타났다가 가 버린다.

7. 한번은 내가 기회에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속상한 그대로 대했더니, 기회는 내 말을 듣고 충격 받고 병들어 쓰러졌다가 오랜만에 일어났다. 말이 화살이 되어 그 화살을 기회가 맞은 것이다.

8. 기회는 시켜 놓고, 그것을 행했는지 늘 본다.

9. 기회는 할 일을 미루면 복이 흘러 남에게 간다고 마음 귀청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른다.

10. 한번은 기회를 잡아 “너는 내 것이다.”하고 이불 속에 묶어 놓고, 바빠서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와서 기회를 보았다. 그랬더니 기회가 맛도, 성격도, 몸도 변해서 다 죽어 가고 있었다. 기회가 왔을 때 같이 뛰고 달려야 기회도 살고 자기도 산다.

11. 기회는 “나를 제때 대하지 못할 거면 손 대지마. 내 손해냐? 네 손해지. 확실히 해. 너 누구에게 기회를 미루는 거야?” 하고 나를 따끔하게 교훈하고 책망했다.

12. 내가 기회를 기다리며 희망하고 있는데, 한번은 내가 원하고 기다리던 시간에 오지 않았다. 내가 비를 맞고 눈도 맞은 채 옷이 다 찢어져서 울상을 하고 배가 고파 허리끈을 졸라매고 있을 때, 기회를 기다리다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기회가 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좋아 미쳐 뛰었다. 바로 기회를 안고 씻기고 입히고 먹여 주었다. 기회는 변하여 천사가 되어 나를 사랑으로 대했다. 그리고 또 온다고 하며 떠났다.

13. 기회를 사랑함으로 잡고 행하라. 혈벳은 기회에게 내가 새 옷을 사 주고 입혀 주고 먹여 주고 깨끗이 해 주니, 이로 인하여 보람과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때 기회는 “이제 됐어.” 하고 떠나갔다.

14. 기회는 수만 가지로 온다.

15. 기회를 얻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베풀어 주는 기회도 만나기 어렵다. 이것도 큰 기회다.

16.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회는 광장과 길거리에서 우글대고 있고, 행복과 희망의 기회는 누군가 다 가지고 갔다. 참 보기 드물구나.

17. 기회 중에 겉은 거지, 속은 임금인 기회도 있다.

18. 어떤 기회는 와서 “저것은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야. 겉은 순진한 것 같은데 속은 고릴라야. 뱀이야.”하고 가르쳐 주고 떠난다.

19. 기회는 미리 잡아야 보람이다.

<2012년 2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기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날마다 주신다. 행하면 얻는다.

2. 기회를 잡고 주님과 같이 행해야 희망이 이루어진다.

3. 기도로 기회를 만들어라.

4. 오늘은 기회가 자기 생일이라서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기다리니 곧 가 봐야 된다고 하며, 새벽에 순간 왔다가 사랑해 주고 갔다.

5. 기회는 생각났을 때다.

6. 생각했을 때 행하는 것이 기회를 맞은 것이다.

7. 기회는 생각나게 한다.

8. 어느 때 기회는 산그늘같이 내려온다. 따라가면서 행해야 된다.

9. 처음에 기회는 바늘구멍만 하게 온다. 그 기회를 잡고 행하며 가다 보면 바늘구멍 같던 기회가 터널같이 커져서 희망의 대로가 되어 기회와 둘이 함께 멋진 리무진을 타고 달리듯 달려가게 된다.
10. 기회는 가뭄 때 숲속에 묻혀 있는 샘과 같아서 보물 찾듯이 살살이 찾아야 된다.
11. 어떤 사람은 깊은 계곡에 기회가 있는지 모르고, 화려한 곳만 찾고 다닌다. 샘 옆에 나무들이 있듯이, 기회 옆에는 숲을 이루고 있다.
12. 기회는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하여 각종 나무들이 거기에 살게 되어 각종 새들이 모여들게 한다.
13. 기회는 계획을 해야 잡고, 충분한 예비를 해야 맞고 놓치지 않는다.
14. 기회가 묶여 있어도 기회를 사랑하고 기회와 통하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어 소원 성취하게 한다.
15. 기회가 말하기를 “좀 꾸준하게 해야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16.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멀리하고 혼자 소원을 이루려 하니, 아깝게 청춘이 가기만 하고 소원은 안 이루어진다.
17. 기회는 직접 가기 어렵다고 사람을 시켜서 한다. 고로 기회의 사람을 찾아 속 이야기를 하여라. 낮에도 밤에도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밤새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아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해야 된다.
18. 기회는 자기 앞에 강물과 같이 흘러가나, 모두 그릇이 없어 못 퍼 가고 그날그날 쓰기만 한다.
19. 기회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준비하고 와서 기다린 자와 사연을 나누고 하나하나 기회를 풀어 놓는다.
20. 오늘 또 기회가 왔는지 문을 열고 나가 보아라. 정원에도 나가 보고, 문밖에도 나가 보아라.

<2012년 2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회는 새벽부터 온다. 자다가 놓치면 어쩌냐.
2.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때가 기회인지 감을 잡는다.
3. 기회는 그때 그 순간이었다. 놓쳤는지, 잡고 행했는지 분별하여라.
4. 기회의 때에 실컷 행하지 못해서 어쩌냐. 그래서 기회를 알고 맞는 것과 모르고 맞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5. 지금 이때가 마음으로, 영으로 행하는 기회의 때다.
6. 몸으로 행하지 못한 기회,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으로는 꼭 행해야 된다.
7. 기회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기회는 끝에서 오기도 한다.
8. 때가 기회다.
9. 기회는 행복이다.

10.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칠 때도 기회가 온다.
11. 정한 때에 열 일 제치고 기회를 실천해야 된다.
12. 10년, 20년 동안 기회를 기다려도 기회가 오는 시간은 순간이다.
13. 순간 5분의 기회를 잡고 행하니 10년 기다린 보람이 있고, 20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14. 기회주의자는 기회가 와서 행해도 얻을 것을 별로 못 얻는다.
15.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기회를 얻어야 그 기회를 잡고 행하여 수고한 것을 얻게 된다.
16. 기회도 안 왔는데 행하면 행하는 대로 손해다.
17. 기회는 수고의 대가다.
18. 기회가 오면 상대는 아쉬워하며 말한다. 그때가 기회다.
19. 기회가 오면 다른 것을 더 생각하면 안 된다. 그 기회를 잡고 집중하여 행해야 된다.

<2012년 2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미리 행하는 자가 성공한다.
2. 가령 3년 후에 어떤 세계 경기가 있다 하자. 미리 준비하고 행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3.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주님이 재림하면 맞고 하늘나라로 휴거된다.
4. 미리 행하지 않고서는 그 날을 승리할 수 없다.
5. 하루의 승리를 하려면 미리 그것을 위해 행하는 자여야 한다.
6. 새벽부터 미리 행하는 자가 승리한다.
7. 확인하는 자가 실수하지 않듯이, 미리 행하는 자가 실수하지 않는다.
8. 일이 닥쳤을 때 하는 자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9. 가을에 좋은 열매를 따 먹으려면 미리 봄부터 나무에 퇴비하며 정성껏 가꾸야 된다.
10. 그냥은 가을에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 미리 과일나무를 가꾸며 길러야 좋은 열매를 얻게 된다.
11. 미리 해야 완전하다.
12. 미리 해야 제 갈 길을 가게 된다.
13. 미리 행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14. 지옥이 닳졌을 때 벗어나려 한다.
15. 미리 해야 일이 가볍다.
16. 미리 가야 쉽게 갈 수 있다.
17. 인생을 승리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
18. 미리 하는 편이 이긴다.
19. 사탄을 이기려면 미리 하여라.

<2012년 2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미리 하는 자가 이긴다.
2. 미리 해야 당하지 않는다.
3. 미리 하는 자는 먼저 먼 길을 떠난 자다.
4. 미리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5. 미리 하는 자는 밀리지 않는다.
6. 이왕 갈 길 미리 가고, 이왕 할 일 미리 하여라.
7. 장마가 지고 홍수가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듯, 만사의 모든 일을 미리 하는 자는 고통을 적게 받는다.
8. 예비한 자만 주님을 맞는다.
9. 매일 주님을 맞으려고 예비하고 사는 자만 주님을 맞게 된다.
10. ‘미리 하는 것’이란, 예비하는 것이다.
11. ‘미리’란, ‘먼저’다.
12. 먼저 하는 자가 승리한다.
13. 늦게 하는 자는 뺏긴다.
14. ‘미리’란, ‘빠른 것’을 말한다.
15. 미리 하는 자는 빠른 자다.
16. 빠른 자가 승리한다.
17. 미리 하는 자만이 인생 승리한다.
18. 인생 일찍 깨닫고 행하며 사는 자가 승리한다.

19. 예비하지 않고 사는 자는 그 날이 도적같이 닥쳐 심판을 받게 된다.

20. 미리 한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2012년 2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났을 때 미리 하여라.

2. 죽을병도 미리 알고 작을 때 수술하면 다 산다.

3. 지진으로 죽을 곳도 미리 알고 피하면 다 산다.

4. 하나님이 심판하실 곳도 미리 피하면 다 산다.

5. 미리 예방, 미리 피하는 것이다.

6. 댐이 터지기 전에 댐 위로 미리 피하면 다 산다.

7. 미리 알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미리 주님과 행하여라.

8. 지구 세상에서 육신 휴거도 미리 알고 행한 자만 참여했다.

9. 미리 구할 자는 미리 구하여라.

10. 늪기 전에 젊었을 때 미리 하는 자는 성공한다.

11. 시험공부도 시험 보는 당일에 못 한다. 미리 공부한 자가 시험 날 많은 것을 알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12. 괴물도 야수도 미리 피해야 살고, 그것들이 어렸을 때 미리 없애야 자기가 살게 된다.

13. 적을 미리 보는 자는 전쟁터에서 산다.

14.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알고 피해야 산다.

15. 주님은 항상 미리 행하신다.

16. 미련한 자는 미리 안 하고 닥쳐서 한다.

17. 땅값이 금값이 되기 전에 땅을 미리 사듯이, 만사의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여라.

18.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하여라.

19. 미리 하면 쉽고, 미리 하면 문제 없이 한다.

20. 어렸을 때 미리 가르쳐 주고, 키우고, 행하게 하며 준비하게 하여라.

<2012년 2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순간 깨달았을 때 미리 피하고 가라.
2. 돌도 넘어지기 전에 미리 방지다.
3. 먼저 하늘 편에게 시간을 준다. 그때 해 낚아 된다. 그다음은 사탄과 악인들의 시간으로 넘어간다.
4. 롯은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하고 도망갔다. 고로 다 멸망했는데 롯과 그 식구들만 살았다.
5. 롯의 아내는 심판은 피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었다. 고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딸들과 사랑하며 대를 잇고 살았다.
6. 때가 있다. 그때에 미리 해야 된다. 비바람이 불어도 그때가 때라면 해야 된다.
7.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미리 오신다. 고로 우리에게 “미리 하여라. 미리 준비하여라.” 하셨다.
8. 예수님이 재림을 놓고 말씀하셨을 때도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온다. 미리 온다.” 하셨다. 그 말씀대로 생각보다 빨리 오셔서 이미 30년 동안 역사하셨다.
9. 지금도 주님은 그 육으로 보낸 자와 함께 앞날에 한다고 약속한 일을 미리 하고 계신다.
10. 어떻게 하는지 아는 자만 한다. (해석 : 조개를 먹을 줄 아는 갈매기만 조개를 먹고 산다.)
11. 바둑도, 장기도 미리 보고 먼저 행하는 자가 이긴다.
12. 새벽에도 주님은 미리 하신다.
13. 미리 할 때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한다.
14. 미리 하였기에 이 큰일을 혼자 감당하며 한다. (선생)
15. 개미도, 애벌레도, 동물들도 계절을 앞에 두고 미리 할 일을 한다. 죽음도 미리 알고 피한다. 그런데 인간은 당할 것을 당하여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제야 도망간다. 불순종한 자들을 쳐다보며 사탄은 웃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안타까워 쳐다보신다. (예수님 목시, 섭리사의 일들, 각 교회의 일들, 각 개인의 일들 모두 미리 하여라.)
16. 게으르고 미련한 자는 산머루와 산포도와 다래를 따러 바구니와 마대 자루를 메고 산으로 갔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 “올해는 안 열렸네.” 하고 실망만 하고 갔다. 부지런한 자가 미리 와서 이미 따 간 것을 모른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하늘 역사도 그러하다. (주님은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키우셔서 미리 행하게 하셨다.)
17. 미리 하고 미리 얻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가 버려라. 늦게 온 자들은 “올해는 과일이 안 열렸네. 내년엔 열겠지.” 하고 간다.
18. 이미 미리 하고 갔는데, 늦게 와서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행한다. 미리 한 자는 이미 30년 전에 하고 갔다.
19. 먼저 와서 큰 자는 미리 알고 행하지 못했다. 늦게 온 자는 지금 커서 하고 있다.
20. 하나님의 새 역사는 먼저 온 전자가 먼저 왔는데도 못 하니, 후자가 커서 미리 알고 하고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었다.

21. 지혜로운 자는 먼저 깨닫고 미리 한다. 욕을 먹고 악평을 듣고 갖은 억울함을 당해도 밭에 감추인 숨은 보화를 알고 파내듯 미리 행한다. 그러니 욕을 먹고 악평을 들어도 행복하다.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미리 하면 많이 주신다.

2. 돌 값이 금값이 되기 전에 미리 돌을 사다가 돌을 쌓았기에 월명동 돌 조경이 된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돌이 원수라고 밭에서, 논에서 캐 가라고 할 때였다. 예수님은 “돌이 금값이다. 받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거저 주고 시기한다. 밥상돌은 정말 값이 나가는 돌이다. 지금은 어디를 가도 그런 돌이 없다. 더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선생이 10대 때 올라가서 놀았던 사연이 있는 돌이기 때문이다. ‘사연’이 ‘값’이다. 밥상돌은 다른 말로 ‘아내 돌, 부인 돌’이다. 주님의 아내요, 부인인 선생에게 주님이 그 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3. 미리 했기에 땅에서 돌을 거저 주어도 돌을 쌓았다. 지금은 돈을 쥐도 없고, 찾아도 없다.

4. 좋은 열매를 가을에 찾느냐. 잎, 꽃, 열매가 열기 전에 봄부터 과일나무에 퇴비하여 나무를 정성껏 키워야 가을에 좋은 열매를 얻는다.

5. 그동안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육적 휴거를 하고 끝나 가는데, 저 소경들은 이제야 휴거한다고 준비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의 때’에 행하지 않으신다. ‘하늘의 때,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

6. 미리 하면 혼자 해도 할 수 있고, 닥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도 못 한다. (월명동에서 제일 비싼 돌은 사연이 많은 돌이다. 주님과 나와 사연이 얹힌 돌이 가장 값이 나간다. 큰 것이라도, 비싼 것이라도 사연이 없으면 값은 돌 값 뿐이다. 사람도 주님과 사연이 많은 자가 더 가치 있다.)

7. 미리 하면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고, 늦게 하면 큰 돈으로 해야 된다. 더 늦게 하면 큰 돈을 쥐도 못 한다.

8. 동그래산 정자 옆 소나무는 하나님께서 자연성전에 쓰려고 50년 전부터 미리 기르셨다. (주님이 크게 쓸 자도 미리 택하여 관리하고 키웠다. 주님이 기르셔도 모르고 홀대하기에 다른 자를 택하여 그같이 기른 것이다. 아기 같은 자도 키우면 커서 아기들을 본다.)

9. 월명동은 미리 개발했기에 배고플 때 밥 먹듯이 오늘날 자연성전으로 귀히 쓴다.

10. 그때 미리 못 했다고 지금 이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겠느냐. 주님은 항상 범사에 미리 행하신다.

11. ‘신(신발)’은 어디에 가기 전에 미리 신듯이, ‘신(神)’은 항상 미리 행하신다.

12. 미친개가 물려고 하니, 먼저 개를 발로 차서 개 이빨이 빠졌다. 그래서 못 물었다. (삽화)

13. 가라지가 싹이 나서 곡식의 퇴비를 빨아 먹으려 하여 그 싹을 뽑아 버렸다. 그러니 못 빨아 먹었다. (삽화)

14. 모기가 물어뜯으려 몸에 앉기 전에 미리 알고 잡았다. 그러니 못 물었다. 사탄도 미리 알고 잡아야 하는데, 모르면 물리고 해 받을 것을 다 받는다. 행악자들도 그러하다. (삽화)

15. 약한 동물들도 강한 야수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가서 평생 살아남는다.

16. 강자 앞의 약자는 미리 알고 행하는 것이 이기는 비법이다.

<2012년 2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는 비법이다.
2.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하여라.
3. 주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하여라.
4. 미리 할 시간에 딴 일 하고 잠을 자고 있구나.
5. 지혜로운 자가 미리 알고 행하니 미련한 자들이 미쳤다고 비난하고 불신하고 악평까지 해 댈다. 때가 되니 미련한 자는 행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이미 지혜로운 자가 다 거둬 가서 거둘 것이 없도다.
6. 미리 해야 미리 낚는다.
7. 새 새끼도 날개가 나기 전에 잡아야 놓치지 않는다.
8. 섭리사도 미리 해서 역사를 이루고 승리한 것이다.
9. 섭리사가 시작하기 전 20년 전에 주님은 미리 가르쳐 주시고 키운 후에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셨다.
10. 아는 자가 미리 알고 행한다.
11. 먼저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같이 행하신다.
12. 그 일을 당하고 겪은 자만 심정 타고 피부로 느끼고 안다. 고로 자기가 기도하여 급히 행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알아도 그만큼 못 느낀다.
13. (그 일을 당하고 겪은) 본인은 골수에 느끼고, 타인은 피부로 느낀다.
14.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것은 자신이 먼저 느끼니 속히 자세를 고쳐 앉고 응급치료를 하듯이, 자신이 고통 당하는 것은 본인이 느끼니 응급치료 하듯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알려 돕게 해야 된다.
15. 자기가 고통 당하는 만큼 도울 자는 자기 자신이다. 먼저 자신이 대처하고 신속히 주님께 고하면, 왜 그러한지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신다. 그리고 그 심정을 알아주는 자가 함께 기도하여 도와주고 몸으로도 도와준다.
16. 오래된 음식과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듯이, 오래된 옛날 기성 말씀과 요리를 잘못된 말씀과 변질된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적으로 식중독에 걸려 몸부림치게 된다.
17. 묵은 양식을 먹어 영적 병에 시달리며 살지 말고, 새 시대 심령의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18. 깨달았을 때 먼저 하여라.
19. 깨달은 자가 알려 줄 것을 알려 줘야 된다.

<2012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기란 '생각'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를 받는다.
2. 어떻게 마음먹고 정신을 차리느냐에 따라 기를 받는다.
3. 자기가 의지하고 믿어 주고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의 말로 기를 받는다. 힘을 받는다.
4. 자기를 사랑하고 지도하는 자를 통해서도 자신이 좋게 생각하는 만큼, 의지하는 만큼 기를 받게 된다.
5. 큰 사명을 가진 자나 어떤 특별한 권세와 명예를 가진 자를 통해서는 기를 더 크게 받게 된다.
6. 사람에 따라서 기쁨과 사랑과 희망의 기를 받는다.
7. 자기를 유익하게 해 주고, 돕고, 사랑해 주고, 관리해 주면 실제적인 기를 받는다.
8. 가령 어떤 사람이 명예와 권세가 있거나 은혜롭고 희귀한 사람이라면, 이를 아는 자는 그와 교통하고프고 사랑하고프고 친구 하고프고 애인 하고파서 더욱 호기심을 일으켜 더 기를 받게 된다.
9.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를 통해서 더 기를 받는다.
10. 만물들을 통해서도 기를 받는다. 사람들이 그 만물이 귀하니 마음이 쏠려 호기심을 갖고 좋아하니 기를 받는 것이다.
11. 본인은 기를 안 주는데, 받으려 하는 자가 혼자서 짝사랑적 기를 받기도 한다.
12.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만큼 기를 받게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만큼 더욱 기를 받게 된다.
14. 기도할 때 극한 기를 받는다.
15.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를 받는다.
16.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때다. 이때 가장 큰 기를 받게 된다.
17. 예수님을 진정 미쳐서 사랑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자기가 주님께 사랑을 주는 만큼 기를 받게 된다.
18. 정신적으로 자기를 수양함으로 정신을 작동시켜 심리적인 기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기는 정신을 수양하는 데서 오는 기로서 하나의 육적인 것에 속하는 기다.
19. 영적 기를 받아야 된다.
20. 전능자 하나님의 기를 받고 구세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를 받아야 된다.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의 기가 있고, 말씀의 기가 있고, 사명의 기가 있고, 축복의 기가 있다.
2. 기는 힘이다. 자기가 좋아하든지, 희망을 갖든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 줄 때 기를 받고 힘을 받게 된다.

3. 기(氣)에는 자연의 기가 있다. 좋은 환경, 좋은 공기, 좋은 물, 좋은 음식 등이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쓸 때 거기에서 오는 좋은 영향으로 인하여 기를 받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쓰면서 마음이 즐거워 기를 받게 된다.
4. 악을 행하면 마귀와 악의 기를 받게 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를 받게 된다.
5. 자기가 사랑하고 믿고 희망을 거는 자에게 육적 정신적 기를 받게 된다. 그를 볼 때 기를 받아 능력이 나가기도 하고, 그 기를 받고 마음이 완전히 전환되고 고쳐지기도 한다.
6.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의의 기는 빠져나가고, 죄의 기만 남아 더욱 강하게 활동하게 된다.
7.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이념과 독재주의 이념의 기가 활동하여 그 기로 살고 있다.
8. 새 시대는 하나님의 기, 주님의 사랑의 기, 신부의 기가 최고다.
9. 이 시대는 ‘휴거’로 인한 희망과 기쁨과 믿음이 최고 강렬한 시대다. 휴거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믿고 행할수록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힘을 주신다.
10. 우주의 만물들은 중력권의 기를 받고 존재한다.
11. 기는 주고받고 수수 관계를 할 때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12. 사랑의 기가 최고 강하다.
13.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기가 최고로 강하다는 말이다.
14. 인간은 물질, 돈, 재물, 먹고 입는 것, 자기를 편하게 하는 것, 이성의 사랑에서 기를 받고 그것을 누리며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간다.
15.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속에 모든 기가 다 들어 있다.
16. 기는 마음·생각·정신으로 받으니까 항상 마음·정신·생각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정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마음먹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대로 기를 받으니까 마음·정신·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17. 어떤 사람을 통해 기를 받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 그만큼 기가 있어야 그를 통해서 기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기가 있어야 하고, 그가 기를 줘야 받을 수 있다.
18. 온전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기를 받아야 된다.
19.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듣고, 시대에 해당되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최고의 기를 받게 된다.
20. 모든 존재물은 힘으로 존재한다. 이는 ‘기로 존재한다.’ 함이다.
21. 기준량의 ‘기’가 없으면, 과로하여 쓰러지고 병들고 죽기도 한다.

<2012년 2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한 세계에는 한 존재가 정상적이다.

2. 세상은 육의 세계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들이 사람처럼 육의 눈으로 보인다면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계가 되지 못한다. 고로 육의 세계는 ‘육’을 중시하여 살도록 창조되었다.
3. 사람에게에는 저마다 ‘육과 영’이 있다. 그런데 영이 육같이 늘 보이면 둘 다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고로 이 세상은 ‘육’을 중시하여 살면서 육이 영을 위해서 살게 창조되었다. 한 세계, 한 존재다. 육을 중시하든지, 영을 중시하든지 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
4. 세상은 육 존재 세계다. 하늘에서 영이 와도 세상 일을 하려면 육신을 쓰고 행한다. 그 육은 영이 희망하던 자라야 한다.
5. 남녀가 결혼해서도 실상 둘이지만 한 존재가 안 되면 같이 못 산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어야 산다. 두 존재이면 서로 생각과 성격이 안 맞아 존재하지 못한다.
6. 두 존재를 한 세계에 갖다 놓았는데, 두 존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같이 못 산다. 고로 한 세계, 한 존재라는 것이다.
7. 종교도 한 세계, 한 존재다.
8.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육신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하면 마음과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같이 못 산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육은 땅에서 휴거되고, 영은 천국으로 휴거된다. 예수의 영이 재림한다.’ 하시고 이같이 실행하신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과 같이 동행하면 성삼위와 동행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못한다. / 천사장이 나팔 부는 주님의 영 재림 전에 주님은 먼저 영으로 땅에 오셔서 땅의 신부를 택하여 시대권의 부활을 시킨 다음에 그를 자신의 육으로 쓰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상에 신부 시대 성약말씀을 주어 믿고 따르게 한다. 그러므로 구시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을 시킨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땅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거듭나고 변화된 육과 영이 되어 산다. 이것이 ‘육신 휴거’다. / 육신 휴거를 이룬 자들의 영은 육신이 변화함에 따라서 영도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린다. / 때가 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이 영으로 재림하시면, 땅에서 육신 휴거를 이루어 신부로 변화된 영만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이때 주님은 신부로 변화된 영을 2차로 변화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 이같이 알고 행하는 자만 이 시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을 펴며 시대 구원을 받고 존재한다.
10. 사람들끼리도 서로 이론이 다르면 한 세계에서 같이 존재하지 못한다. 주인이 밭의 가라지를 뽑아내듯이 그 이론을 뽑아내고 이론이 맞는 자들끼리 같이 산다.
11. 한 세계, 한 존재다. 고로 한 뜻을 이루게 된다.
12. 항상 중심 사명자를 머리로 삼고 그와 하나 되어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쪼개져 나가게 된다.
13. 주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같이 존재할 수 없다.
14.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자는 같은 위치에 있게 된다. 천국급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행위가 다르고, 낙원급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행위가 다르고, 선영계급에 있는 자들의 생각과 행위가 다르다.
15. 지옥, 무저갱, 악영계의 이론은 사탄 이론이다. 그러나 그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자기 편에서 보니 그 이론이 최고로 맞다고 본다. 자기가 거기에서 존재하니 그 이론이 체질이 되고 머리에 메모리 되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16. 잘못하면 지옥이다.

17. 절대 중심자와 이루는 구원이다. 중심을 따라가며 맡기고 가야 된다.
18.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시대에 보낸 중심자는 하나로 조립된 하나의 기계와 같다. 한 지체다. 고로 거기 붙어야 된다.
19. 주님께 묻기를 “우리 어머니는 95세로 이제 늙어서 정신이 없어 통하지도 못합니다.” 했다. 주님은 “뭐가 늙었어? 영이 젊은데. 영과 통해야 통해진다.” 하셨다.
20. 결정하기 전에 말하여라.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전에 미리부터 말하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 고로 하늘이 보낸 자는 미리부터 기도한다.
21. 어린아이라도 말을 해 놓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고려하고 행하신다. 하물며 하늘이 보낸 자가 간곡히 말하고 고하는데 어떤 세계의 어떤 일도 들어주고 결정하지 않으시겠느냐.
22. 시골 한 농부의 딸이 있었다. 이 소녀가 임금에게 편지하기를 “행여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면, 우리 집 좀 들러 주세요. 만일 우리 마을에 오셨는데도 우리 집에 들르지 않으시면 임금님에게 손해가 갈지도 모르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하며 자기 집 주소를 정확히 써서 보냈다. / 그 후 임금이 지방에 갈 일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소녀가 생각나 그곳이 멀어도 그 마을에 가는 계획을 일정에 같이 넣었다. / 7년 후에 임금은 결국 그곳에 가게 됐다. 정말 시골이고, 갑자기 가니 마차도 들어갈 수 없는 논두렁길이었다. 그래서 걸어서 들어갔다. 몇 집도 안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가서 보니 동네 사람들은 너무 놀라 숨기도 했다. / 그러나 임금에게 편지를 쓴 소녀는 오래 전에 편지를 보냈던 생각을 하여 나가서 임금을 맞았다. 소녀는 벌써 커서 숙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임금을 너무 좋아하며 임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가 맞으니, 임금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며 안아 주었다. 감히 백성으로서 임금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을 자유롭게 했다. / 임금은 그 전에 소녀의 집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으니 그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면담을 했다. 무슨 면담을 했는지는 비밀이었다. / 면담을 끝내고 임금은 말하기를 “어찌 사람이 짐승 같은 집에서 사느냐. 내가 이 나라 왕이고 이들은 나를 따르는 백성인데, 이들이 사는 집을 보면 마치 저주받고 형벌 받고 사는 자들 같다. 모두 집을 깨끗이 짓고 살게 하여라. 내가 또 올 테니까 그리하여라.” 했다. / 이렇게 임금은 희망을 주고 갔다. 여자는 바로 집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지었다. 그리고 임금이 다시 오니 넓은 길을 만들자고 하며 논두렁길을 넓혔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곳에 또 오겠냐. 헛된 희망이다.” 했다. 그러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싸워 가면서 길을 넓혔다. 임금이 왔다 갔기에 소녀의 사고는 점점 영웅같이 달라졌다. / 결국 여자는 임금이 백성 중에 거할 수 있는 궁을 만들게 되었다. 여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내적으로 계속 역사한 것이었다. 결국 이 여자는 임금의 왕비가 되었다.

<2012년 2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전구는 그 볼트 단위대로 전기의 전류를 접촉하면서 기를 받는다.
2. 사람은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차원 급에 의해서 기를 받게 된다.
3.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자연 세계 만물이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자기 마음·생각·정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대로 그것들을 통해 기를 받기도 한다.
4. 영 급에 의해서 확실하게도 보이고 흐리게도 보이는 것이다.
5. 주님은 틈만 있으면 사랑해 주려고 하신다. 조건만 갖춰라. 사랑의 환경을 갖춰 놓고 사랑받을 준비만 해 놓으면 주님은 항상 사랑해 주신다.
6. 생활이 실체가 되어야 된다. 생활이 사랑의 실체다.
7. 아무리 소, 돼지, 염소, 양이 큰소리쳐도 우리에게 갇혀 있다. 기성이 아무리 큰소리쳐도 새 역사 뒤의 구시대에 갇혀

있다.

8. 아무리 구시대 우리 속에서 새 역사를 비웃고 비판하고 악평해도 새 역사 섭리사는 자유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모시고, 시대에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

9. 저들은 저 방에 갇혀 있고, 주를 맞은 신부들은 천국 방에 들어가 신랑과 즐기고 있다.

10.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은 신부들은 천국 방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맞지 못한 자들은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거할 각종 방으로 들어간다.

11. 주님을 ‘마음’과 ‘생활’로 만나는 것이다.

12.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해야 주님이 그 여건을 통해 오신다.

13. 마음과 생활의 조건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시는데, 조건을 세운 대로 만나 주신다.

14. 죄가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 죄는 더러운 것이다.

15. 음식이 더러우면 먹을 수 없듯이 신부가 더러우면 신랑이 취할 수가 없다. 고로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된다. 회개는 더러운 손을 씻듯이 씻는 것이다.

16. 사랑과 회개는 바늘과 실과 같다.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아는 자는 신이다.

2. 만일 알았으면 그같이 하지 아니 하였으리라.

3. 봄에 산나물을 뜯으러 다니는 자들만 나물의 철을 알고 뜯으러 다닌다. 이와 같이 재림과 휴거 역사의 사명자와 그 역사를 펴 온 자들만 휴거의 때를 알고 휴거 말씀을 한다.

4. 수영하는 자들이나 수영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수영하는 계절을 알고, 수영 시간을 알고 수영한다. 이와 같이 재림과 휴거 역사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역사를 펴는 자들만 때를 알지, 다른 자들은 모른다.

5. 열차를 타고 여행 가는 자들이나 어디가 좋은지 신경 쓰고 알고 가지, 여행 안 가는 자들은 관심이 없어 모른다.

6. 주 하나님의 시대도 따르고 좇으며 살던 자나 때를 알지, 그냥 사는 자는 때를 모른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따르는 자들이나 알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살아도 모른다.

7. 이스라엘 민족이나 가나안 땅에 가려고 희망 있게 갔지, 다른 자들은 가나안 복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 이 시대도 시대의 때를 좇아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좇는 자들이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관심을 갖고 받아들이고 좇지,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믿어도 모른다.

8. 결혼한 자나 가정을 꾸미고 아들딸 낳으려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다른 자는 신경을 안 쓴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휴거도 이 시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알고 애간장이 탄다.

9. 결혼할 자나 결혼 이야기를 하고, 결혼에 희망이 차서 거기 해당되는 말을 듣고 배우려 하고, 사랑하는 신랑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에 꽃을 피운다. 다른 자는 신경을 안 쓰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고, ‘신랑’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쓴다. /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주님을 맞아 휴거에 해당되는 자들만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휴거에 신경 쓰고 휴거의 말을 한다.

10. 아픈 자만 병원을 찾고 아픈 자들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육의 휴거와 영의 휴거가 해당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신부들에게만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필요하여 재림과 휴거를 기다린다. 주님은 그들에게만 휴거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여 휴거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11. 잔칫집에서나 잔치 이야기를 하듯이, 휴거할 곳에서나 휴거 이야기를 하고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다.

<2012년 2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을 받은 자만 말씀을 귀히 여긴다.

2. 처음에 취미로 시작하고, 혹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위해 행하며 대역사를 펴기도 한다.

3. 세상에서 자기 건강을 위해 운동하다가 국가대표선수로 쓰여지듯이, 자기를 위해서 하던 것이 계속 하다가 깊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대사역자가 되어 쓰이게 되기도 한다.

4. 주님이 말씀을 다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말이다.

5. 말씀이 사명이다.

6. 말씀이 주님이시다.

7. 주님의 말씀을 주는 것은 주님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

8.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자와 같이 말씀을 이루신다.

9. 시대 하나님과 주님의 사명자에게는 그 시대에 하실 말씀을 주신다.

10.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말씀을 준 것은 자기 몸을 준 것과 같다.

11. 가령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준다. 내 속의 모든 생각을 너에게 준다.” 하며 그 속의 생각을 다 말했다면, 이는 자기 몸을 남자에게 다 준 것이다. 그때부터 여자는 남자의 것이 되어 사랑하며 산다. ‘말’이 이같이 귀하다.

12. 주님이 시대 말씀을 주었으면, 그 사람에게 주님을 준 것이다.

13. 주님이 앞날에 큰 계획이 있으셔도 그 큰 계획을 행할 자가 처음에는 마치 자기가 궁금한 것이나 희망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같이 좇고 행하게 하신다.

14. 마치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행하듯 하게 하면서 점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항상 말씀을 뇌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어 하늘길로 가게 하신다.

15. 한 여자가 자기 사랑을 주면 몸도 마음도 다 준 것같이, 주님이 시대 말씀을 다 주었으면 주님의 몸도 마음도 다 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도 주님도 책임지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외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2012년 2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제가 있어야 대화가 된다. <해석> 주님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두고 대화하며 기도할지 ‘주제’를 내놔야 주님과 대화가 된다. 주제를 한 번 내놓으면, 그것으로 대화가 되니 주제를 잘 내놔야 된다.
2.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 세상의 답을 주지 않으시고 하늘의 답을 주셨다. 세상의 답을 주면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살기 때문이며, 그러면 주님도 세상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다. 고로 주님은 하늘의 답을 주어 구원해 주셨다.
3. 욕에 속한 문제에 대해 욕에 속한 답을 주면 답을 얻어도 또 욕적인 자가 된다.
4. 욕에 속한 인생 문제에는 영에 속한 답을 줘야 인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5.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곤고함에 시달렸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은 한 번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신 후에 이와 같이 사람을 낚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답을 주셨다.
6.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늘 고기나 잡으며 인생을 곤고하게 살 때, 주님은 그때를 기회로 삼으시고 베드로에게 인생의 답을 주셨다.
7.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할 때 한 번은 표적을 보이신다. 이때 그 사람이 표적을 보고 놀라 기이히 여길 때, 거기서 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네가 하늘의 뜻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와 같이 된다.” 하고 답을 주신다.
8. 사람들이 이성에 대한 답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다.
9. 사람들이 자기 인생길을 가다 곤고하니까 자기 인생길보다 힘들지 않은 좋은 길로 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길로 가자.” 하고 답을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었으며, 인생 문제의 영원한 답이었다.
10. 곤고한 때에는 생각하여라. 왜 곤고함에 처하게 되었는지 생각하여라. 이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
11.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하늘의 답을 주셨다. 그러니 청년은 따르지 않았다.
12. 욕적 문제에는 영적인 답을 줘라.
13. 욕적 문제는 영적으로 답을 줘라.
14. 가령 누가 욕신의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답을 물으면, 신앙의 부자가 되는 답을 주어라. 그로 인하여 영뿐만 아니라 욕도 축복받고 살기 때문이다.
15. 가령 누가 공부를 많이 하여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공부를 많이 하여 성공하라고 하여라.
16. 주님은 밥을 달라는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다.
17. 주님은 사랑의 문제로 곤고한 여자에게 “나를 사랑하여라.”라고 답을 주셨다.
18. 주님은 욕신의 옷이 없어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영혼의 옷인 행실의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영혼의 부끄러움이 없게 해 주셨다.

19.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고 싶어 하는 자에게 맛있는 것을 한 번 사 주고, “이와 같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라. 이는 매일 줄 수 있다. 그러면 인생 문제도 영원히 해결된다.” 하여라.

20. 육적인 문제에 육적인 답만 주면 구원을 못 시킨다.

21. 꿈에 샤프펜슬을 작동하니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다. 주님께서 내게 이 꿈을 보이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실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22. 이 말씀으로 사람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2012년 2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눈’으로 그리는 그림이 있고, ‘뇌’로 그리는 그림이 있다.

2. 눈으로 그리는 그림은 눈으로 보고 그리는 그림을 말하고, 뇌로 그리는 그림은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을 말한다.

3.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림이 있다.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르는 그림은 형이상학적 그림이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그림은 형이하학적 그림이다.

4. 주님이 주신 구상의 그림이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린 그림이 있다.

5. 그 당시에 보고 택하는 것이 있고, 혈통적으로 미리 택하는 것이 있다.

6. 보면서 택하는 사람이 있고, 미리 예정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 부르는 사람도 있다.

7. 월명동은 옛적부터 택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 개발하게 된 것이다.

8. 그림도 오래전부터 그 그림을 그리려고 계획해 놓았다가 그리는 그림도 있고, 그 당시에 보고 깨닫고 그리는 그림도 있다.

9. 육적인 문제에는 영적인 답을 주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해야 된다.

10. 육적 사랑의 답을 달라는 자에게 정신적인 사랑의 답을 주고, 육에 속한 과일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에 속한 뇌의 과일을 사랑하게 답을 줘야 된다.

11. 밤길을 가는 자가 등불이 꺼졌다고 등불을 달라고 하거들랑 또 밤길을 걷게 등불을 주지 말고 ‘해’의 등불을 주어야 한다. 밤은 세상이요, 낮은 하늘이다.

12. 그림에는 색이 선이다.

13. 그림은 색으로 명암을 나타낸다. 색으로 낮추고 높이고, 넓히고 좁히는 것이다.

14. 사람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좌우된다. 잘 대하면 밝아지고, 잘 대하지 못하면 어두워진다.

15. 마음의 명암도 대하는 대로 높아지고 낮아진다.

16. 이성의 육적 사랑은 한 가지만 느끼게 하지만, 마음과 영의 사랑은 수백 가지를 느끼게 한다.

17. 육적인 것은 어떤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비해 단순하다.
18. 어두운 곳은 낮은 곳이고 환한 곳은 높은 곳이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음부와 흑암 세계는 낮은 지옥에 속한 세계이고, 빛의 세계는 높고 높은 천국에 속한 세계이다.
19. 낮은 어두운 곳도 없애면 높은 세계가 된다.
20. 육은 낮고 영은 높다.
21. ‘육’은 땅에 속했기에 땅의 높이이고, ‘정신’은 공중의 높이이고, ‘영’은 천국의 높이이다.
22. 저마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그 위치와 높이가 좌우된다.
23. 육의 답을 육으로 주면 역시 육이다. 영으로 줘야 영원하다.
24.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음은 육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25. 여자는 사과도 배도 복숭아도 아니고 ‘잣’과 같다.
26. 여자는 ‘잣’으로 보고 대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27. 여자를 사과나 배나 포도나 감이나 복숭아나 바나나나 과일로 보고 대하면 기대가 어긋난다. 잣 열매로 보고 대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28. 남자는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밤나무나 배나무나 복숭아나무로 보지 말고 ‘고욤나무’로 보고 대해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29. 사람을 작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30. 사람을 크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난다.
31. 주님을 작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나고, 주님을 크게 보는 자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활 속의 시험이다.
2. 생활 가운데 한 행동 하나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시험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3. 삶 속에서 잘 행하여 한 문제, 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된다.
4. 자신이 그때그때 할 일을 주 안에서 제대로 해결해 가는 것이 인생 시험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다.
5. 시험 시간에 늦으면 그만큼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당황되어 풀 수 없듯이, 자기가 행할 시간에 늦으면 그만큼 시간에 쫓겨 행할 일을 못 하게 된다.
6. 시험문제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잘 풀 수 있듯이, 삶 속에서 행하는 인생의 시험 역시 평소에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인생의 그 시간마다 닥치는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다.

7. <낮>에는 생활의 시험문제를 행하면서 풀고, <밤>에는 꿈으로 영계로 가서 자기가 행한 것을 채점하기도 한다.
8. 성경은 답안지다. 성경대로 살았는지 보면 안다.
9. 자기 생활에 대한 채점을 하여라. 성경을 보고도 알지만, 자기 양심과 마음을 통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10. 주님 뜻대로, 주님과의 약속대로 해야만 인생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다.
11. 시험문제는 행실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마음과 영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다.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육적으로도 행하고 영적으로도 행해야 된다.
12. 인생 생활의 시험문제를 못 풀면 인생 시험에 들게 된다.
13.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해야 인생 삶의 시험문제를 잘 풀게 된다.
14. 어느 때는 사랑의 시험문제, 어느 때는 믿음의 시험문제, 어느 때는 기도의 시험문제, 어느 때는 찬양의 시험문제, 어느 때는 성경을 읽고 시대 말씀을 읽고 행하는 시험문제, 어느 때는 전도와 관리와 말씀을 전하는 시험문제, 어느 때는 마음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시험문제 등 수백 가지의 인생 시험문제 중에 매일 10가지, 20가지, 30가지의 시험이 온다.
15. 사랑 시험 때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믿음 시험 때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기도 시험 때는 진정 기도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찬양 시험 때는 찬양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말씀 시험 때는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이와 같이 해당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16. 일을 미루지 않고 제때 하는 것이 그 시험문제를 푸는 것이다.
17. 교회에 제시간에 가는 것이 그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18. 마음 문을 열어서는 안 될 때 열어 주지 않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19. 이성의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것이 시험문제를 푼 것이다.
20. 조심하지 않고 말하면 시험문제를 제대로 못 푼 것이다.
21. 제 발에 걸려 넘어지듯, 자기가 잘못 행하여 시험문제 못 풀고 만다.
22. 하루 종일 생활의 시험이다. 평소 삶 가운데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인생 시험문제를 잘 푼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2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7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20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50개, 어떤 사람은 하루에 70개의 삶의 시험문제가 나온다.
23. 자기 삶의 시험을 잘 봤는지 실습하면서 매일 채점해 보아라. A학점은 100점, B학점은 90점, C학점은 80점이다.
24. 꿈속에 시험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몰랐다. 이는 낮에 써 놓은 잠언을 순서별로 교정하지 못하여 흐트러져 막 섞여서 모두 못 찾고 말았기에 그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결국 5일 동안 80%를 찾았다. 잠언을 찾자마자 장마다 완벽하게 번호를 매겨 잘 알아보게 했다.

<2012년 2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자는 해 줘도 모르니 정신과 사고를 제대로 깨우쳐 주어야. 그래야 밑 깨진 독에 물 붓는 꼴이 안 된다.
2.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해 주면 잘할 것 같아도 아니다. 정신과 사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정신과 사고를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3. 씨 뿌리면 나기는 하는데,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가 문제다.
4. 눈으로 안 보니까 희망이다.
5. 저마다 마음의 눈높이가 표준이다. 사람이 높이 봐도, 낮게 봐도 저울은 무게대로 기운다.
6. 저마다 마음의 계절이 닳치면 계절 따라 행하기 마련이다.
7. 저마다 찬 것과 더운 것을 겪고 당해야 연단되어 튼튼해져 거친 세상을 살아간다.
8.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 길을 갔겠느냐.
9. 저 하늘은 알고, 이미 예전에 복음으로 은밀히 불렀다.
10. 자기가 하기 싫으면 벼슬도 싫다 하고 안 한다.
11. 길에 밟히는 돌도 들어서 내던지면 자존심 상해 싫어한다. 돌을 잘 가져다 쉴 자리에 갖다 놓으면 좋아한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마음 안 맞아도 잘 대해 주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라.
12. 돌이 불을 주고받고 배구하듯 하여라. 혼자 잘해도 상대가 못하면 불은 땅에 떨어진다.
13. 아파서 기도했는데 육도 영도 축복이다. 영원한 축복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주님의 일이다.
14. 주님의 일은 하늘나라에 가면 보물로 변화되고 빛으로 변화되어 빛난다.
15. 이름만 달리 부를 뿐이지 같은 것이다. 분별하고 판단하라. (계시받는다고 하는 자에게 “설교도 주님의 계시다. 같은 말이다. 다만 ‘설교’라고 부를 뿐이다. 설교를 중심하여라.” 했다.)
16. 혈육이나 잘 아는 자들을 다루기가 더 어렵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뤄라. 너는 마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몸이 되어 다루면 된다.
17. 하늘의 것은 하늘에다 뿌리고, 땅의 것은 땅에다 뿌려야 제때 풍부하게 거둔다.
18. 해마다 뿌리고 가꾸면 못다 먹을 만큼 많이 얻게 되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얻게 된다.
19. 용꿈을 꾸었는데 사탄 꿈을 꾸었다고 기분 나빠해도 이는 하늘이 주신 복이라 그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
20. 꿈에 용을 봐도 기분 나쁜 사탄을 상징한 용이나, 큰 사람을 상징한 용이나에 따라 다르다.
21. 한번은 꿈에 누가 두 아름 되는 뱀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선생이 “아니, 본 자가 때려잡아야지 소리만 지르느냐. 그러다가 뱀이 도망가겠다.” 하고 쫓아갔다. 가 보니 정말 두 아름 되는 큰 뱀이 있었다. 너무 커서 몽둥이로 때려서 잡을 뱀이 아니어서 순간 고민했다. 내 손에 큰 망치가 쥐어져 있어서 온갖 힘을 다해서 간신이 망치를 들어

큰 뱀의 머리를 내려쳤다. 간신히 7번을 내려쳤더니 결국 뱀의 머리가 잘려서 골이 허영게 나왔다. 용 같은 뱀을 죽였다. / 이 꿈을 꾸고 깊은 기도를 7번 힘들게 했다. 거짓으로 힘들게 하는 자가 있어 이를 두고 기도했다. 주님은 기도대로 해 주겠다고 응답하셨다.

22. 오해와 미움은 쉽고, 사랑은 어렵다.

23. 내가 약속대로 해 줬으면 너도 약속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24. 주와 같이 할 때 가치 있는 일이 온다.

25. 주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를 쓰신다.

26. (주 편) 오직 나의 말을 듣고 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인생은 너무 차이가 있구나.

27. 처음에는 그림자같이 비쳐 오다가 가다 보면 그 실물이 나타난다.

28. 금덩어리도 그림자만 보고서는 금인지 몰라본다. 실체를 봐야 된다. 사람도 육체라는 그림자만 보고서는 모른다. 그 사람의 영체를 봐야 제대로 안다.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존재하는 데서 힘을 받아야 자기를 존재시킨다. 운동하는 자는 운동하는 데서 오는 힘으로 존재하고, 연애하는 자는 연애하는 데서 오는 힘으로 존재하고, 신앙생활 하는 자는 신앙생활 하는 데서 오는 힘으로 존재해야 된다. (새벽에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새벽을 깨우며 존재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

2. 연애하는 자들은 연애하는 힘이 있어 그 힘을 가지고 연애한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자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얻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체에서 일어나는 힘과 상대에서 오는 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로부터 오는 힘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으로 행하면서 힘을 얻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힘을 받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3. 신앙생활 하면서 힘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 하게 되니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힘을 얻어야 된다.

4. 가령 새벽에 기도하러 새벽예배에 다니는데, 새벽예배로 인해서 힘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다니지 못하게 된다. 새벽에 기도하여 성령의 힘을 받고 예수님께 힘을 받아야 그 힘으로 존재하며 희망을 이루게 된다.

5. 농사짓는 데도 농부들은 농사지으면서 힘을 받아야 그 힘으로 농사를 짓는다.

6. 농사지을 때 농부만이 얻는 힘이 있다. 수고함으로 인하여 얻는 곡식의 대가와 일함으로 인하여 얻는 건강의 대가다.

7.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하며, 그 하는 일로 인하여 힘을 받아야 신앙으로 존재한다.

8. 교회에 다니면서 반드시 교회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그 힘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다.

9. ‘자기 관리’는 자기가 존재하는 데서 힘을 얻는 일이다.

10. 가령 수영하는 자는 수영하는 데서 힘을 받아야 수영을 한다.

11. 저마다 존재하는 데서 얻어야 될 것을 못 얻으면 거기서 존재하지 못한다.

12. 목회하는 자들도 목회하는 데서 목회의 힘을 받아야 목회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
13.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해야 된다.
14. 기도해야 기도의 힘이 오고, 전도해야 전도의 힘이 오고, 외쳐야 말씀의 힘이 온다.
15. 운동장을 뛰는 데에 뛰다 보면 지쳐서 못 뛰는 자가 있고, 힘들지만 뛰면서 그로 말미암아 힘을 받고 뛰는 자가 있다.
16. 상대방부터 오는 힘이 있고, 자기가 행함으로 자기에게서 오는 힘이 있다.
17. 주님도 힘을 주시지만, 자신에게서도 힘이 일어나야 된다.
18.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힘'이 온다.
19. 사람은 '힘'으로 존재한다. 그 힘이 주저앉으면 다시 뛰고 달려 힘이 작동되어 폭발되게 해야 된다.
20. 원자폭탄도 폭발하지 않으면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인다.
21. 자기 힘을 폭발시키려면 불이 가열되어야 한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불을 가열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힘이 폭발된다. 자동차도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계속 서로 마주쳐 불을 일으켜 줌으로 힘을 폭발시켜 가게 한다.
22. 주님과 함께 자기를 폭발시켜라.
23. 마음속의 '의'와 '위대함'도 행하여 폭발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2012년 2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얻는 것이 있어야 존재한다.
2. 작게 얻으면 큰 것을 존재시키지 못한다.
3. 약은 것도 지혜다. * 약다. 약아빠지다. - '자기를 이롭게 하는 수단이 좋다.'라는 뜻
4. 참새는 약다. 그래서 참새로서 존재한다.
5. 약아야 한다.
6. 시간을 퐁당퐁당 쓰지 말고 시간에 있어 약아라. 그래야 하루 할 일을 밀리지 않게 제대로 하면서 간다.
7. 약게 하라고 한 말을 깨달아라. 손으로 하고 지나갈 일을 몸으로 하다가는 갈 길을 못 가니, 손으로 할 일을 손으로 하라는 것이다.
8. 눈으로 보고 지나갈 것을 직접 가서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대 보고 하면 약은 것이 못 된다. 약아야 존재한다. 약은 지혜를 가져라.
9. 약았다는 말은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유능하다. 지혜롭다'라는 말이다.

10. 참새를 보고 약아빠졌다고 한다. 참새 뒷을 놓고 거기에 먹이를 두면, 참새는 먹이를 덥석 물지 않는다. 그 약은 주둥이로 좁쌀 한두 개씩을 살살 먹으니 뒷이 힘을 안 받아 작동을 못 한다. 고로 ‘지혜롭다. 유능하다.’ 하여 약아빠졌다고 하는 것이다.

11. 농부가 마당에다 조(곡식)를 말리는데, 참새가 살짝 와서 한두 개만 먹고 날아간다. 이웃집 닭은 와서 앉아서 계속 조를 쪼아 먹다가 주인이 던진 빗자루를 맞고 쫓겨났다. 참새가 이를 보고 “나같이 약아야 빗자루 안 맞지.” 했다.

12. 시간을 약게 쓸 곳은 약게 써야 크게 쓸 곳에 크게 써서 큰일을 해낼 수 있다.

13. 주님의 일도 약게 할 것은 약게 하면서 부지런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14. 주님이 두 사람에게 “이것 좀 하고 나 따라와라.” 하셨다. 한 사람은 온종일 그 일을 다 하고 해 그늘에 주님을 따라가려 했다. 그런데 주님은 일을 다 하고 돌아오고 계셨다. 다른 한 사람은 약게 순간 하고, 바로 주님을 따라갔다가 주님과 같이 돌아왔다.

15. 인사도 말로 하면 되는데 길바닥에서 엎드려 큰절을 하다 보니 인사를 받는 자가 바빠서 어느새 가 버렸다.

16.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쁘게 행하시니, 거기에 마음과 행실을 맞춰 살아라.

17. 주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를 가지고 거기서 빠져 내보낸다.

18. 자기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약게 하라.

19. 사람들과 시간을 약게 쓰고 가라. 주님이 네 마음 집에서 기다리신다.

20. 돈에 약아야 된다. 벌지도 못하면서 카드 빚까지 내면서 평평 쓰느냐.

21. 주님의 돈을 네 돈같이 쓰면 주님은 안 주신다.

22. 신부라 하면서 혼자 제 살림 하면 어느새 주님은 “네가 신부냐, 농부지.” 하신다.

<2012년 2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매순간마다 주님을 살피라. 주님은 다른 데 계시는데 너 혼자 서 있을 때가 있다.

2.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주님을 ‘말’로만 모시지 말아라. ‘몸’으로 모셔야 주님과 몸이 닿아 사랑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사랑의 느낌이 통하게 된다.

3. 주님을 문밖에 두고 타인에게 빠져 이야기하고 혼자 논다.

4. 사랑하는 자를 건성으로 겉치레로 모시면, 사랑할 다른 자를 찾게 된다. 자기는 건성으로 주님을 대하면서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하지 말아라.

5. 잠에서 깨어나 주님도, 주님의 육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참으로 대하여라.

6. 신앙의 잠, 생각의 잠은 죽음의 잠이다.

7. 부자는 인생의 맛을 잃고 살고, 가난한 자는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산다.

8. 많이 먹으면 맛을 잃기 때문이며, 없으면 귀한 것을 알고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9. 가난한 자는 고통스러워도 음식의 맛도 느끼고 인생의 맛도 느끼며 산다. <해석> 내가 여기 있으니 밖에서 못 느끼던 것들을 느낀다. 꿀이 없으니 꿀맛을 귀히 느끼며 살았다. 그러다 꿀차가 판매되어 10곽을 사 놓고 썰어 놓고 먹으니 꿀맛을 귀히 못 느껴. 만사가 그러하다. 내가 여기 갇혀 사니 시간 활용하는 것과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긴다. 금식할 때 음식 맛을 느끼듯이, 없으면 귀한 것을 알고 그 맛을 느끼며 산다. 고로 부자는 인생의 맛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야.

10. 아랫사람은 만족한데 윗사람이 항상 만족하지 못하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11. 내가 어리니 나 자신만 사랑하면서 왔다. 내가 어리니 주님도 역시 나만 사랑해 주면서 오셨다.

12. 이제는 컸으니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모시고 살아야 된다.

13. 누구든지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면 산 것 같지 않다.

14.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 사랑을 리드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시며 살아 줘야 된다.

15. 과일나무도 주인이 가꾸 주고 퇴비해 주며 자기를 위해 살아 주면, 열매를 열 때부터는 주인을 위해 존재한다.

16. 인간들은 권한과 권세를 행사한다.

17.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인간의 권한이고 권세다. 충성 자체가 권한이요, 권세다.

18. 하나님 앞에 순종 자체가 권세다.

19.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께 충성하고 일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를 자기 권세로 안 보고, 일 맡은 그것을 권세와 세력으로 잘못 본다.

2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고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대하니 불신하고 악평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어 전같이 쏘듯이 행하신다.

21. 깨닫고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행하신다.

22. 사람이 사탄 편이 되어도 악을 행한 만큼만 사탄이 괴롭히도록 하나님은 법을 정하셨다.

<2012년 3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생길을 찾고서 고생하면서 가는 자가 인생길을 못 찾고 헤매고 다니는 자보다 낫다.

2. 인생길을 찾아도 인생길을 가느라 고생된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세상에서 천국을 찾지 말아라.

3. 성경에는 특히 성공한 자들만 많이 나온다. 성공한 자들을 보고 모두 성공하라고 특히 그들을 들어 말한 것이다. 실패자들을 많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패자들에 대해서는 가끔 교훈으로 말해 주었다.

4.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고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공한 자들만 특히 많이 나온다. 실패한 자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패한 자들에 대해 말하면 도움이 안 되기에 안 썼다. 고로 성경에 성공한 자들이 더 많다고 비율을 따지고,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한다.

5. 사업하는 자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자는 많지 않다. 사업하여 성공한 자들만 책을 쓴다. 실패한 자는 책을 쓰지도 않는다. 고로 책만 보고, 자기도 사업만 하면 성공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6. 제대로 믿어야 구원에 성공한다.

7.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원 못 받고 끝난 자들이 너무 많다. 성경에 안 나온 자들이 너무 많다. 그 시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는 일부의 사람들만 나왔다. 물론 성공한 자들도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했다.

8. 성공하려면 성공한 자, 표상자를 따라 그같이 행해야 된다.

9. 인간이 '영'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무슨 재미와 기쁨과 희망으로 살랴.

10. 사람이 '영'에 대해 관심이 없다면 무슨 가치와 희망과 기쁨으로 살랴.

11.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자는 '영'에 대해 관심이 없고 '영'의 존재를 안 믿어도 재미있고 기쁘게 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열매 없는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우는 재미와 꽃만 피우고 마는 재미로 사는 격이다.

12.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마치 육신이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가 남은 인생이라도 재미있게 사는 격과 같다.

13. '영'에 대해 관심 없이 사는 자는 그 영이 지옥의 선고를 받고 사는 자다. 그 육과 영은 이미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14. 어둠에 사는 그 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기도하고 살면, 죽음의 선고에서 벗어나듯 사망에서 나온다.

15. 부정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6. 지난날 내 육신이 전쟁터와 삶의 현장에서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살려 주시어 30여 번 이상을 살았다. 이와 같이 내 영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죽음 속에서 살려 주시어 구원받고 살고 있다.

<2012년 3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제 연장이 안 되니, 남은 짧은 시간에 빨리 목적지까지 가게 재촉해 달라고 기도하고 독촉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재촉과 독촉'이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이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동받고 긴장되어 빨리 행해지게 된다.

2.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못다 한 것을 다 하도록 채찍질하며 말같이 뛰게 해 주는 일밖에 없다.

3. 사탄의 매를 맞으면 죽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찬바람이 불게 하여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매는 우리를 재촉하여 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죽지 않고 사는 길이다.

4.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더 뛰어라. 더 뛰어야 공의의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시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5.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월등하게 잘 대해 주면 공의가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많이 받아

야 ‘공의’다.

6.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신다. 사탄도 악이고, 악인도 악이다. 선이 악을 행했다 하자. 이때 하나님이 악을 심판 하시면 사탄도, 악인도, 선도 다 죽고 화를 당한다. 고로 악만을 못 친다. 악을 치면 선도 악을 행한 만큼 쳐야 ‘공의’라서 같이 친다.

7. 고로 선이 악을 행하면 악의 심판의 날에 같이 죽게 된다고 하신 것이다.

8. 우리가 절대 선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악 심판을 마음대로 행하신다.

9. 사랑하는 애인도 불량배 속에 같이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으니, 빨리 온전히 행하여 거기서 나오기를 바란다.

10. 성약시대에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애인 신앙, 신부 신앙을 하고 살 때 약속대로 사탄도 철수시키게 된다.

11.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농사다.

12. 농부가 농사짓듯 기도하여라.

13. ‘영혼’은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고, ‘기도’는 농부와 같다.

14.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 우리 입만 쳐다보고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대화다.

15. 어떤 일을 놓고 자기가 직접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므로 절대로 온전하게 해 주신다. 만일 내가 지시하고 내가 행하면 잘못 지시하고 잘못 판단하여 행하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고 행하신다. 사람을 통해 행하기도 하시고, 직접 행하기도 하신다.

16. 기도하여라. 이때는 진정 기도할 때다.

<2012년 3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원시인 지역에서 살면 원시인이 된다.

2.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살면 그 지역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영향과 주관을 받아 그 지역 사람이 된다.

3. 육계도 영계도 그러하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영향과 주관을 받으며 살게 된다.

4. 사탄 주관권에서 살면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되고, 하늘 생명 주관권에서 살면 하늘 생명의 영향과 주관을 받고 살게 된다.

5. 구원받은 차원 급에 따라서 법도 다르고, 주관을 받는 것도 다르고, 축복도 다르다.

6. 사막에서 살면 누구나 사막의 기후 영향과 사막의 환경 영향을 똑같이 받게 된다.

7. 기후가 좋고 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누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의 영향과 주관을 받게 된다.

8. 구약 주관권에 살면 누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약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된다.

9. 신약 주관권으로 나와서 사는 자는 누구나 구약 옛 법의 주관을 안 받고 벗어나서 신약 주관을 받게 된다.
10. 때가 되어 하나님은 성약시대의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시대에서 나와 성약 주관을 받고 살게 하셨다.
11. 구약-신약-성약 차원 세계 그대로 그 주관을 받고 그 법을 따라 살게 하셨다.
12. 세상 법도 그러하다. 누구나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주관을 받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13.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그러하다. 누구나 시대에 따라 그 주관권에서 살면 그 주관을 받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다.
14. 사탄 지역에 살면 누구나 사탄의 간섭을 받고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의'로 싸워야 된다.
15. 하나님의 주관권과 사탄의 주관권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마치 바다와 육지가 구분되어 있고, 땅과 공중의 한계가 구분되어 있듯이 구분되어 있다.
16. 같은 하나님 주관권 세계라도 시대에 따라 선포한 말씀이 다르니, 시대 말씀을 듣고 그 주관권의 삶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외치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 또 새 시대가 오니,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대마다 말씀이 차이가 나니, 서로 하나님을 내세우며 말씀 때문에 싸움을 해 왔다.
17.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도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사명자들을 통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에 의한 복음을 펴 오셨다.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다르니 자손들이 서로 싸움을 하듯이,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시대성과 말씀과 제도가 각각 다르니 싸움을 하며 나뉘어져 산다.
18.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역사의 차원을 높일 때는 그 시대에 맞는 법을 선포하신다.
19. 7000년 구원역사를 보면 구약 4000년 율법 주관권 세계와, 신약 2000년 예수님 복음 주관권 세계와, 성약 1000년 재림 복음 주관권 세계로 완전히 구분된다.
20.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주관권 세계다. 구원의 차원도 다르다.

<2012년 3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해당되는 뜻을 펴신다.
2. 자기가 혼자 하루를 살아도 아침과 낮과 밤에 하는 일이 다르다. 만일 시간대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차원에서 머물고 살다가 끝난다.
3. 밤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된다. 아침이 오고 낮이 왔는데도 잠을 자면, '밤'이라는 구시대 주관권에서 잠을 자며 사는 자로서 새 시대권에서는 죽었다고 한다.
4. 오전에는 일을 보러 가는 일을 했다 하자. 오후에는 퇴근해서 와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오전 주관권 삶에서 끝난 자가 된다.
5. 구시대에 살던 자가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다.

6.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차원에 합당한 법을 주셨다. 그로 인하여 성장하고 뜻을 이루었다. 새 시대가 오면, 그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새로운 법과 구시대에서 약속한 것을 주니 새 시대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 구약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뜻이었듯이, 구시대는 새 시대를 따라 행하는 것이 뜻이다.
8. 구시대는 새 시대를 기다리는 밤의 시대였다. 새 시대는 낮의 시대다. 고로 낮이 되면 모두 낮으로 와야 된다.
9.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면 그에 합당한 사명자를 보내시고 새 말씀을 선포하시며 새 시대 역사를 펴신다.
10. 하나님은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오지 않는 자들을 구시대 주관권의 삶을 살게 그대로 놔두신다. 구시대 뜻은 다 뿔었으니 새 시대 역사를 펴며 뜻을 펴신다. 마치 1층 건물을 지으려 했는데 다 지었으면 그대로 두고, 다른 데다 별장을 짓고 빌딩을 짓듯이 새 시대 뜻을 펴신다.
11. 구시대에서 약속한 것을 새 시대에서 이루시고 축복하시며 뜻을 펴신다.
12. 새 시대에서 이루는 뜻은 구시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고자 하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역사가 왔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 새 시대로 온 젊은이들이 받고 누리게 되었다.
13. 부모 시대에 원하던 것이 왔는데 못 받아들이니, 새 시대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고 누리고 살게 된 것이다.
14. 육계는 같은 위치에 살면서 각각 차원의 세계가 구분되어 있다.
15. 육계는 가난한 자도 부자도 같은 위치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살면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된다. 같은 곳에서 살아도 가난한 자와 부자는 차원이 다르게 산다.
16. 그러나 영계는 각자 차원에 따라 사는 주관권이 정해져 있다. 시대 말씀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주관권에 거하게 하며 그 주관을 받고 살도록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17. (도표 보여 주면서) 영계는 종적인 차원과 횡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어 시대 말씀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곳에 존재한다. 천국 : 낙원 : 선영계로 종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천국도 낙원도 선영계도 최고 중심권과 그다음 중간권과 그다음 최하 바깥 주관권으로 횡적으로 또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18. 육계는 횡적인 차원으로만 되어 있다. 육계는 육이 사는 세상으로 공중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즉 횡적으로 그 차원이 나무 나이테 형으로 번져간다.
19. (37번 도표 다시 보여 주면서) 영계는 종적 차원의 세계와 횡적 차원의 세계로 체계와 질서가 잡혀 있다. 종적 차원의 세계로는 선영계 : 낙원 : 천국으로 되어 있다. 선영계에서 낙원, 낙원에서 천국으로 갈수록 보다 높은 곳에 있다. 급이 높을수록 높은 곳에 있다. 그리고 선영계도, 낙원도, 천국도 다시 횡적으로 구분되어 최고 중심권 - 중간권 - 최하 바깥 주관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20. 같은 천국도 주관권이 나뉘어 있다. 하나님이 사시는 핵심 주관권이 있고, 다음 차원으로 중간 주관권이 있고, 다음 차원으로 천국에서 제일 바깥 주관권이 있다. 그리고 핵심 주관권 안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천국은 이렇게 질서 있게 되어 있다.
21. 자기 행위대로 영계를 상속받아 그 주관권에 가서 살게 된다.
22. 육이 땅에서 살 때 어느 시대 주관권에서 사느냐에 따라 영계에서 영이 어느 차원의 주관권에서 사느냐가 정해진다.

23.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 말씀을 안 받아들임으로 구원자 예수님의 혜택을 못 받는다. 육지와 바다의 한계가 정해져 있듯이, 어느 시대 주관권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주관권마다 차원이 다른데,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24. 영계는 의롭고 높은 차원일수록 높은 곳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 존재하신다.

25. 똑같은 영계 주관권 안에서도 또 나선형으로 그 차원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제일 중심 차원이 핵심으로 '상' 차원이고, 그다음이 '중' 차원이고, 그다음이 '하' 차원이다. '하' 차원은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다.

<2012년 3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도 시대에 따라 발달이 안 되면 미개한 원시인 종교가 된다.

2. 시대는 발달되는데 종교인들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지 못하고 사니, 종교는 자동적으로 미개한 세계로 남아진다. 고로 사람들은 차원이 낮은 종교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 한다.

3.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시대를 앞질러 가야 되는데 죽어 있다.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법을 받고 행하면서 발달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죽어 있는 것이다.

4.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주어 그 시대에 합당한 말씀의 법을 주신다. 그 시대 말씀을 중심하여 행하는 종교만 시대를 앞질러 발달된다. 그 종교가 중심 종교다.

5. 시대에 따라 발달되지 못하는 종교는 미개한 원시인 종교로 남아져 율법 주관권에서 옛 법에 매여 살듯이 살고 있다.

6. 전능자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 사람을 보내어 그를 중심해서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따르지 않고 옛 시대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미개한 종교로 남아져 미개한 신앙을 하게 된다.

7. 유대 종교인들도 성자가 예수의 육신을 쓰고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구약의 옛 법을 지키면서 사는 미개한 종교가 되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와 천주교도 이 시대 새 성약역사를 따르지 않음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신약의 옛 법을 지키면서 미개하게 살고 있다.

8.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며 살고 있으니, 사람들은 발달된 삶을 살다가 그 법을 접하고는 못 견디고 나오게 된다. 신약 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는 2000년 전의 옛 법이다. 고로 발달된 세계에 맞지도 않고 뒤떨어져서 오히려 미개한 세계에 처하게 한다.

9.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그 시대에 주신 법을 따라 살면 발달되고, 시대를 다스리고, 미개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옛 법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게 된다.

10. 하루를 살아도 오전에 해야 할 일 다르고 오후에 해야 할 일의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옛 종교인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같이 행한다. 이들은 원시인 신앙인들이다.

11. 마치 10세 전에 행할 일을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자들같이 산다. 성장하면서 행해야 할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해서 그 시대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면서 차원을 높이신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신다.

12. 그 시대에 따른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13. 유아기 때 젖이나 먹고 행하던 행동을 커서도 하니, 장정이 행해도 발달된 시대 종교를 받아들인 소년이 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14. 두 어린 소년이 있었다. 두 소년은 부모로부터 자전거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한 소년이 청년이 되었어도 계속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다른 한 소년은 청년이 되었을 때 부모로부터 차를 받고 차를 타고 다녔다. 자전거 소년은 차를 타고 다니는 청년과 일체 되어 차를 타지 않고 계속 자전거를 타니, 차를 타고 다니는 청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40대,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그같이 하니 점점 더 차를 타고 다니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시대에 따라 종교도 그러하다.

15. 이 세상에서 종교가 제일 발달이 안 되었다. 세상은 모두 발달되었는데, 종교는 옛날 6000년 전, 5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에 신앙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법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행하며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그 미개함이 빛 가운데 어둠과 같다.

16. 내 고향 석막리 교회는 내가 10대 때 하던 식으로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50년이 지났어도 똑같다. 나는 예수님께서 시대에 따라 시대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으로 사니, 이 시대를 따라 세계까지 복음의 역사를 펴고 있다.

17.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옛 법에 따른 역사를 끝내시고, 다시 사명자를 보내어 새 법을 주시어 그를 통해 다시 새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

18. 어른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듯, 종교인들이 옛 법의 기저귀를 차고 아기같이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싸고 다니는 신앙생활을 한다.

19. 새 시대 법을 주셨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새 역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차원을 높여 법을 주시며 역사해 나가신다. 수십 년 전과 현재는 또 다르다. 고로 새 역사로 와서 새 시대 법을 따랐어도 어렸을 때의 행위를 버리고 어른이 되어 차원을 높인 시대 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야 편하고 발달되고 시대를 다스려 나간다.

20. 지도자는 늘 기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연구하며 날마다 발전하면서 따르는 자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 만일 이것을 못 하면, 시대는 올라가서 높은 차원에 있는데, 지나간 옛 시대에서 사는 꼴이 된다. 지도자가 그러면 따르는 자들도 모두 힘들다.

21. 중심자를 따라서 일체 되지 않으면, 같은 중심자를 따라가도 옛 법을 따르면서 가게 되어 뒤처져 힘들게 가게 된다.

22. 새 말씀을 듣고 따랐어도 계속 배워야 주님 안에서 그때 해당되는 삶을 살게 된다.

23. 배우고 아는 자만 쉽게 살 수 있다.

24. 모르면 100년 행해야 되고, 알면 1년만 행해도 되고, 더 알면 안 행해도 된다. 알면 필요 없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25. 전능자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존재자이시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살면 알고 산다.

<2012년 3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한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에 따라 전통을 가지고 믿으니 수십 가지 층으로 믿는다.

2.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 되어 믿는 자는 한 해, 한 해 발전하면서 뜻을 펴 나가지만, 믿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이 죽은 교파들은 늘 그 자리다. 옛날 선조들이 하던 식으로 성전이나 화려하게 짓는다. 지

금은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갈 때다. 자기 정신과 몸을 온전히 만들고,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 때다. 구시대는 하나님의 전은 화려한데 영은 초라하다. 나그네가 몸 단장 안 하고, 환경 단장 하는 격이다.

3.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삶으로 육도 영도 휴거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 살 이때다.

4. 하나님의 전을 화려하게 짓고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 앞에 종 입장이고, 부모 앞에 자녀 입장으로 살고 있으니 불행하다. 초가집 같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사니 종교인으로서 최고로 행복하다.

5.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금쟁반의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크냐.

6.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신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지만, 성전이나 치장하며 화려하게 꾸며 놓고 사는 옛날 선조들 같은 신앙은 그림의 떡을 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산다. 예수님은 “너희 육신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 영을 변화시켜 천국급의 구원을 받고 살아라.” 하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구시대 구약 종교인들이 성전이나 귀히 보고 치장하며 사는 것을 보시고 “네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거듭나게 하여라.” 하고 외치셨다. 자기 마음과 몸과 영보다 성전을 더 중히 여기고 중시하니, 성전은 빛나고 자기의 영과 육은 어둡다. 구시대 원시인 신앙인들이다.

7. 지금은 메시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고 신부로서 사는 시대다.

8. 예수님은 시대를 따라 강림하시어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사는 자들의 육신을 데리고 땅에서 혼인 잔치를 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혼인 잔치를 하려고 신부로 예비된 영혼들을 찾으신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아직도 수백 년 전의 옛 법에 매여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 살고 있다.

9.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이 소리치면서 새 시대를 따라가는 자들을 지적한다. 참으로 가련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

10. 지식인과 권세자라도 나룻배를 타고 가면 노를 저으며 가야 된다. 어린아이라도 군함을 타고 가면 신선처럼 왕이 되어 가게 된다. 이 시대 종교도 그러하다.

11. 새 시대에 왔다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서 기성인도 아니고 새 시대인도 아닌 채 새 역사를 만들어 보려 온갖 짓을 다 하지만, 꿈이 사람이 되겠느냐. 참감나무에 접붙이려고 고욤나무를 벤 것인데, 참감나무를 접붙이지 않고 열매를 열게 하겠다고 한다. 차라리 고욤나무를 베지 않았으면 고욤나무 열매라도 따 먹고 살 것인데, 고욤나무는 이미 베어 버렸고 참감나무도 접붙이지 않았으니 열매도 없고 이제 가시만 돌아 열렸구나. 고로 불 지르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12. 새로운 역사, 새로운 발전이다.

13. 옛 그릇, 옛 집, 옛 옷, 옛 문화를 쓰면서 사니 새것 앞에 얼마나 초라하냐.

14. 옛 역사에 사는 자들은 시대의 거지다.

15. 세상에서도 그 시대에 해당되게 발달되어 살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자다.

16.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도 옛 시대 식으로 산다. 개방을 안 하니 처음에 시작했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산다.

17. 옛 시대의 삶은 그림의 떡을 보는 삶이다.

18. 새 시대는 현실에서 행하며 사니 현실의 떡이다. 구시대는 새 시대가 오기를 희망하며 살았으나 새 시대가 왔을 때 맞지 않았다. 망상에서만 산 것이다.

19.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림의 떡으로 대하고 믿고 사랑하며 산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 떡으로 대하고 믿고 사랑하며 산다. 행동하는 자는 주님과 일체 되어 사는 자다.

20. 사진을 봐도 남의 사진을 보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자의 사진을 보는 것이 다르다. 남의 사진은 그림의 떡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의 사진은 실제 떡과 같다. 주님을 믿고만 사는 자는 그림의 떡을 보는 격이요, 주님을 실제로 보고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실제 떡을 먹는 격이다.

21. 주님을 실제로 보고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그림의 떡으로 보고 마음으로만 먹고 마음만 기뻐하면서 배는 굶주리고 사는 자다. (깊은 잠언이야. 모두 영계에서 썼다.)

22. 그림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와 실체를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땅과 하늘 같다.

23. 주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4. 신부라면 주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5. 남녀가 아무리 마음으로 불같이 사랑해도 실제 육체로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하늘까지 달아도 실제로 몸이 안 닿으면 휴거되지 않는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야 된다.

26. 실체가 없는 제물은 이론 제물이다. 몸으로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행하기는 쉽다. 몸이 행해지지 않아서 곤고한 것이다.

27.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으로 행하고, 사탄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로만 행한다.

<2012년 3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쏘는 적을 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

2. 자기가 해를 받아 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해 주었는데도 원수가 계속 원수 짓을 하면 사랑할 것 없다. 그때는 행위대로 대해 줘야 된다.

3. 원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못 펴게 되니, 여호수아같이 원수의 행위대로 대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펴야 된다.

4. 의인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적이다.

5.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주님은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 주시고, 결국 원수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역사를 펴셨다.

6. 하나님은 악인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는 악인을 심판하셨다 함이다. 하나님을 따라서 같이 행해야 된다.

7.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는 원수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 행위대로 갚아 주는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 갚아 주신다.

8. 원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원수는 그 사랑을 받고 의인들을 더 괴롭힌다.

9. 악인을 사랑하면 죄가 된다. 악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그 행위대로 대해 줘야 된다.
10. 행악자는 항상 사탄의 몸 되어 행하니, 행하는 일마다 악하다. 의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행악자를 대면하여 싸워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같이 담대히 행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다.
11. 독사를 사랑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잡아 없애야 독사가 어린 사람들을 물어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사와 뱀들은 모두 잡아다 없애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도록 기도하여라.
12. 야수들은 사람을 해한다. 고로 야수를 사랑하다가는 죽게 된다.
13. 지혜로운 자는 야수를 보면 포수에게 말하여 잡아 없애게 하고, 평생 편히 산다.
14. 매일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해롭게 하여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게 한다.
15. 의인에게서 악인을 쪼개서어 깊은 산악 속에 넣고,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16.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니 악인을 없애게 기도해야 된다.
17. 야수의 새끼는 어릴 때는 길러도 모른다. 그러다 야수 새끼가 크면 사람을 잡아먹으니 알게 된다. 그때는 포수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포수가 바로 야수를 잡아 없앤다.
18.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크면 사람을 물어 죽일 동물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야수 새끼는 바로 구분하여 동물원에 갖다 주든지 없애야 된다.
19. 야수는 쇠고랑에 묶어 놔도 야수다.
20. 야수는 키우지 말아라. 염소는 아무리 사랑하고 보살피고 키워 줘도 양이 안 된다. 염소는 염소 농장에 팔아 버려라.
21. 섭리사에서는 야수들과 뱀들과 독종들은 기르지 말고 모두 쪼개 내라.
22. 자기 마음속에 원수 같은 모든 악과 불의의 마음과 생각은 쪼개 내야 된다.

<2012년 3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마음의 수준을 가진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당했는데 한 사람은 죄를 짓고, 다른 한 사람은 죄를 안 지었다. 한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여 죄를 안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생각을 하여 못 참고 몸으로 행하여 죄를 지었다.
2. 뇌신경에서 이미 진행한 것은 육신이 못 막는다.
3. 안 하려면 아예 뇌신경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4. 아예 생각하지 않아야 육이 행하지 않는다.
5. 이미 생각하여 뇌신경에서 진행된 것은 육신이 못 막는다.
6. 육신은 뇌신경의 작용에 의해 따라 하게 된다.

7. 아예 생각을 안 해야 행동도 안 하게 된다.
8. 뇌신경의 진행 구조를 알아라. 소변을 아예 참아야 참을 수 있지, 진행 중에는 참지 못한다. 이미 출발했기 때문이다. 수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9.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이미 진행됐을 때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하게 된다.
10.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안 하게 된다.
11. 한 번 생각하면 ‘생각’으로 뇌에 시동이 걸리기에 진행된다.
12. 댐의 수문을 한 번 열어 놓으면 진행되어 강물이 되어 들어오니 못 막는다.
13. 사람이 생각하면 뇌에서 결정하고 생각의 엔진이 가동되어 진행하게 된다. 육신은 생각의 엔진이 작동하면 따라간다.
14. 차에 시동이 걸리면 차의 몸체는 끌려가고 따라간다.
15. 아예 ‘생각’이라는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 육신도 평생 못 간다.
16. 온전히 배우고 깨달아 처음부터 제대로 판단하고 아예 불의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17. 사람은 생각함과 동시에 뇌신경이 움직여 진행된다는 것을 알아라.
18. 불의를 생각한 것이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19. 아예 불의를 생각 말아라.
20.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했으면 뇌신경이 진행되어 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생각을 육으로 행하기도 하고, 행하지 않기도 한다. 뇌에서 ‘생각’으로 진행한 것과, ‘육’으로 행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한다.
21. 흔히 사람들은 불의를 육으로 행한 것만 회개한다. 생각한 것도 뇌에 저장되어 비디오를 찍은 것같이 녹화되어 있으니 그것도 회개해야 된다.

<2012년 3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안 해야 행동을 안 하게 된다.
2. 불의한 것은 미리 알고 아예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3. 그 날이 산에 가면 죽는 날이라면, 아예 산에 한 걸음도 가지 말아야 산다. 이와 같이 불의는 아예 생각을 안 해야 행동을 안 한다.
4.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느라 아예 그 생각을 못 했더니 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것을 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5.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빠져 행할 때, 세상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여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중

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여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이같이 살아라.

6. 죽은 자는 공포에 떨지 않는다. 잠을 자느라 못 들은 자도 그러하다.

7.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그것을 생각한다. 이때부터 뇌가 작동하여 그 일이 진행된다.

8. 세상을 보고 접하면 뇌가 그것으로 진행된다. 고로 주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

9. 불의한 사랑을 생각함으로 진행한 자는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90% 힘들다. 아예 생각하지 않은 자는 안 하는 것이 99% 쉽다.

10. 미리 알고 행하는 자는 99% 할 수 있다.

11. 자기가 죽을 곳인지 아는 자는 절대 그곳에 안 간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목숨 다해 절대 안 가기 때문이다.

12. 그 일을 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안 해야 안 하게 된다.

13. 그 일을 해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야 하게 된다.

14.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하는 큰 운명의 결정체는 ‘생각’이라는 뇌의 결정체다.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구원을 이룬다.

15. 자신이 그 일을 하면 좋다는 것을 알아도 못 하는 이유가 있다. 생각이 약하기 때문이다. 뇌의 ‘생각’이라는 결정체가 강철같이 강하여 생각을 강하게 진행해야 몸도 따라 행하게 된다.

16. 자기 ‘육신’이 게으른 것이 버릇되어 있기 전에 ‘생각’이 게으른 것이 버릇이 된 것이다. 고로 게으른 생각을 먼저 고쳐야 된다.

17. ‘생각’이라는 체질과 습관과 버릇을 고쳐야 성공한다.

18.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환경으로 받는 것에 의해 자기 뇌에서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19. 아예 냄새를 말지 말아야 뇌에서 진행되지 않는다.

20. ‘생각’이라는 냄새를 아예 풍기지 말아라.

21.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마음에 스며들어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22. 하지 않을 일은 아예 생각을 안 해야 행동도 안 하게 된다.

23. 할 일은 아예 생각해야 행동도 하게 된다.

24. 아예 생각을 주께 맡겨라.

<2012년 3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다 주께 맡긴 자는 천국에 간다.

2.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 말기면, 남자가 가는 곳에 여자도 다 가게 된다.
3. 남녀가 서로 몸도 마음도 맡기고 살 때, 자기가 원하는 참된 사랑이 이루어진다.
4. 주님께 마음과 생각과 몸을 다 맡기고 살면, 주님도 그에게 마음과 몸을 맡기고 사신다.
5.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과 몸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고 사는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이다.
6. (주 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게 너의 마음을 맡겨라.
7. (주 편) 내게 마음을 안 맡긴 자는 내 마음대로 못 한다.
8. (주 편) 내게 마음을 맡긴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
9. (주 편) 내게 마음을 안 맡긴 자는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자다.
10. (주 편) 내게 맡겼다는 것은 내 것이 됐다는 것이다.
11. (주 편) 내게 종이와 밭을 맡기면 나 예수가 그린다.
12. (주 편) 내게 맡기지 않은 사랑은 받아도 불안한 사랑이다.
13. (주 편) 내게 맡기지 않은 사랑은 줄 때 얻어먹는 사랑이다.
14. (주 편) 내게 맡기지 않은 사랑은 이 놈도 주고 저 놈도 준다.
15. (주 편) 내게 맡기지 않은 사랑은 주는 대로만 먹는 사랑이다.
16. (주 편) 내게 맡긴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먹는 사랑이다.
17. (주 편) 내게 너의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사랑을 맡기지 않으면 구원을 얻었다가, 상실했다가 한다.
18. (주 편) 내게 모두 맡기면 구원이 영원하다.
19. (주 편) 나 예수에게 모두 맡겨라. 내가 행해야 된다.
20. (주 편) 내게 안 맡기면, 나 예수도 너에게 안 맡긴다.
21. 주님께 맡기지 않는 자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자다.
22. 주님께 맡기고도 자기 마음대로 한 자는 도둑이다.
23.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는 안 맡기고 사는 자보다 1000배 더 나은 인생을 산다.
24. (주 편) 내게 맡기고 행하면 사고 안 난다.
25. (주 편) 내게 안 맡기고 행하면 사고 난다.
26. (주 편) 아예 내게 맡기고 묻기만 하여라.

27. (주 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 줄 때도 내게 말기고 써라.

28. (주 편)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은 다 자기 뜻을 펴는 것이다.

29. 자기 생각과 의지로 하는 자에게 나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다 물러가라.” 한다.

<2012년 3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내게 말기고 나의 뜻을 알고 살아라.

2. (주 편) 내게 맡겨야 내가 행하니, 나의 뜻을 알게 된다.

3. (주 편) 내게 안 맡긴 자는 자기 뜻대로 하니 나의 뜻을 모른다.

4. 주님이 코치해서 그리는 그림과 주님이 아예 그려 주시는 그림은 가치가 다르다.

5. 주님의 코치를 받고 그린 그림 작품과 주님께 맡겨서 주님과 합작해서 그린 그림 작품은 다르다. 주님께 맡겨서 그린 그림은 주님의 작품이다.

6. (주 편) 내게 맡긴 자는 나의 진정한 신부다.

7. 계시도 내게 말기어 내가 직접 준 계시가 있고, 내가 코치해 준 계시가 있다. 내가 직접 준 계시와 자기 의지를 통해서 내가 코치하여 준 계시는 다르다. 내가 줘서 받는 계시와 달라고 해서 받는 계시는 다르다.

8. 월명동 자연성전은 주님께 맡기고 행하여 만든 것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천국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는 이 세 단어가 기본이다.

9.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조금만 해 주신다.

10. 처음에 주께 맡기고는 주님이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떠난다.

11. 주님을 사람 대하듯 대하는 자는 엄한 형벌의 대상자다.

12. 주님은 절대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반면 절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심판자이시다.

13.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행위대로 사랑하신다.

14.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자는 한 명도 없다.

15. 주님의 사랑을 다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지옥에 간 것이다.

16. 자기가 좋아하는 행위를 하다가 지옥에 갔다.

17. 주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면 지옥에 못 간다.

18. 자기가 자기를 좋게도 예정하고 나쁘게도 예정한다. 자기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19. 개미가 코끼리에게 맡기듯 주께 맡겨라.

20. 주께 맡기고, 자기는 안 했는데도 잘됐다.
21. 주께 맡기지 않고, 피땀 흘려 목숨 걸고 행했는데 망했다.
22. 잘 먹으면 건강하고 살이 찌듯이, 주님이 행하시면 그러하다.
23. 자기가 하면 자기만 기쁘고 주님은 안 기쁘다.
24. 주님께 드려라.
25. “주님께 다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천국과 바꾸게 된다.
26. 주께 안 맡기면 인생 운명이 돌아간다.
27. 주님께 맡긴 자는 ‘주와 동행’, 주님께 안 맡긴 자는 ‘홀로 행함’이다.
28. 주께 맡기고 변질되지 말아라.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비유가 답이다.
2. 그냥 보면 몰라도 비유로는 안다.
3. 사람을 봐도 모르지만 비유로는 안다.
4.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주님은 만물이나 사람을 보여 주시며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계시하신다.
5. 우리는 ‘문제’, 주님은 ‘비유로 답’이시다.
6. 주님은 일순간에 간단히 말씀하신다. 변칙이신다.
7. 주님은 우리 뇌에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생각난다.
8. 범람한 강줄기도 발원지에서부터 시작된다.
9.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신의 발원지는 ‘뇌’다.
10.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접하고,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
11. 그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접해도 그와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를 가진 사람도 있다.
12. 주님께 맡긴 뇌가 있다. 확인해 보면 오직 주님 마음이다.
13. 주께 맡긴 뇌는 꿀통과 같고, 주께 안 맡긴 뇌는 똥통과 같다.

14. 꿀벌에게 벌통을 맡기고 몇 달 후에 보니 꿀이 짝 찼다.->차 있다.
15. 주님께 뇌를 맡기면 꿀통과 같이 된다.
16. 꿀벌에게 안 맡긴 벌통을 보면 모기, 거미, 개미 등 각종 벌레들이 골고루 짝 차 있다.
17. 주님께 뇌를 맡기면 꿀통이 되고, 안 맡기면 꿀통이 된다.
18. 꿀통은 골칫거리다.
19. 제정신 바짝 차리고 살려 하지 말고, 주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20. 제정신은 바짝 차려도 역시 제정신이다.
21. 제정신은 자기 목숨을 걸고 맡길 수 없는 정신이다.
22. 주님께 뇌를 맡겨야 목숨을 맡겨도 마음이 놓인다.
23. 인간의 정신은, 샘에 물을 뜨러 갔다가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물은 안 뜨고 그냥 온다.
24. 인간의 정신으로는 생각을 해도 해도 그 샘물에 그 정도의 물만 솟아나듯이 항상 인간의 생각이다.
25. 인간 생각으로 100%가 안 된다. 주님 생각으로 해야 100%가 된다.

<2012년 3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과 영의 세계를 좌우하는 뇌, 곧 마음·정신·생각을 먼저 배우고 살아라.
2. 뇌는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과 주님께 배워야 된다.
3. 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어 작동하게 하여라.
4.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이 사용하던 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5. 뇌가 인간의 삶으로 습관이 들고 버릇이 들어 기능이 떨어졌다.
6. 뇌는 하나님의 상대체로 창조되었다. 고로 인간이 쓰는 것과는 상상도 못 하게 엄청난 기능을 한다.
7. 뇌로 세상의 것들만 감지하고 살면 안 된다. 하늘나라까지 감지하고 살아야 된다.
8. 천국은 육신이 못 가니 뇌에다 천국의 화면을 넣으며 보게 하신다.
9. 하나님과 예수님이 인간의 뇌를 쓰시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들로 다양하게 쓰신다.
10. 주님께 뇌를 맡겨 놓고 어떻게 쓰이는지 보니, 신령한 신의 단계로 쓰이고 있었다.
11. 주님께 뇌를 맡기고 쓰는 것을 보니 내가 쓰는 것과 전혀 달랐다.
12. 나의 뇌를 가지고 내가 2시간 동안 쓰면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일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1000년 동안 존재할 것

에 쓰시고 영원히 쓰는 것에 쓰셨다.

13. 밤에는 잠을 자니 사탄이 나의 뇌를 쓸까 봐 주님께 맡겨 버렸다.

14. 잠을 잘 때도 주님께 나의 뇌를 맡기니, 주님은 나의 뇌를 가지고 평소에 생각도 못 하는 영계에 가지고 가서서 순간 쓰셨다.

15. 주님께 나의 뇌를 맡긴 후에 생시에 내가 써 보니 자동차 같지 않고 비행기 같았다.

16. 아무리 자기 뇌를 아끼며 쓰더라도 잘못 쓰니 고물 된다.

17. 자기 뇌를 주님께 아예 맡기기 싫으면, 전세로라도 맡기고 그 일부를 받아서 쓰는 것이 자기가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

18. 과수원을 가지고 있어도 기술이 없으면, 과수원지기에게 맡기고 그 일부를 얻는 것이 훨씬 낫다.

19. 자기 몸도 뇌도 주님께 맡기고, 주인에게서 대가를 받고 사는 것이 낫다.

20. 주님께 맡기고 사는 자는 구원도 이룰 수 있다.

21. 사명자에게 맡긴 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22. 그 일의 생명의 사명자에게 맡기지 않은 자는 생명이 부도나서 사망관에서 사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

23. 사탄에게 생명을 다시금 사 오려니 사탄이 엄청난 가격을 부른다. 바로 더 좋은 다른 생명 세 사람을 달라고 한다.

24. 사탄이 가지고 간 생명인데, 그 누가 값을 주고서 사 가지고 온 자가 있느냐. 사탄을 이길 자는 시대의 사명자와 주님뿐이다.

25. 부도나서 사탄이 데리고 간 생명을 사러 갔더니 영원히 안 판다고 하여서 뺏어 왔다. 사탄도 뺏어 갔으니 다시 뺏어 왔다. 그러니 이제는 뺏기지 말아라.

26.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우고 사탄을 이긴 자만 사탄을 다스린다.

27. 야비하게 각종 불의한 짓을 행하면서 사는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 그 '육신'은 야비한 자들과 같이 행하는 것을 연속해서 하고 있었다. 자기 육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니, 사탄 세계에서 사망의 선고를 받고 묶여 있었는데 그 무서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만 있었다. 그 육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니, 주님은 "그 육신도 그 행위대로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 하셨다.

<2012년 3월 16일 금요일 선물 잠언>

1. '애인'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니 용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꼭 사랑의 조건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여라.)

2. 사람이 잘할 때가 문제가 아니다. 못할 때가 문제다.

3. 잘할 때는 사고가 안 난다. 못할 때 사고가 난다.

4. 잘하다가도 못할 때 문제가 생겨 신앙에서 탈선되고, 유혹에 들고, 죄를 짓는다.

5. 사람이 약해서 죄를 짓고 문제를 당한다고만 합리화하며 인정하지 말아라.
6. 잘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때도 잘했던 것을 생각하여라.
7. 누구나 잘하도록 존재할 만큼 힘을 줬다. 약하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8.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는 인간 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9. 좁은 길을 갈 때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
10. 잘할 때는 험한 절벽 길을 가면서도 잘 갔는데, 넓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 이것이 문제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마라. 잘할 때가 문제가 아니다.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11. 잘할 때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이 되어 모든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못할 때는 자기를 중심으로, 태만하고 교만하며, 정신이 해이해졌기 때문이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가다가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된다.
13.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기도하여라.
14. 인간이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항상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15. 인간이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 안될 때 문제가 생긴다.
16.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되는 길이 있다. 신의 정신을 받아 너를 신같이 만들어라.
17. 인간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못할 때, 그때 죄를 짓고 마음도 변하고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18. 잘할 때는 혼자 있어도 잘하고 문제도 안 생기건만, 못할 때 문제가 생기니 그때 돕고 관리해 줘야 된다.
19. 못하는 때가 생리적인 현상같이 주기적으로 온다.
20. 잘하다가도 때에 따라 못하는 것은 그 면에서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21. 100%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물을 100도까지 끓여 펄펄 끓는 물에 고기를 넣고 삼듯, 완전하게 100% 해야 된다.
22. 못할 때는 정신·마음·생각·혼을 쏟아 전심을 다해 행하지 않고, 심혈을 쏟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찌개도 펄펄 끓여야 먹을 수 있다.
23. 못할 때 문제가 생기니 그때 돕고 관리를 해라.
24. 잘할 때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할 때 환경과 여건이 나빠서 못한 것도 아니었다.
25. 안될 때, 못할 때 방법을 달리하여라.
26. 못할 때, 안될 때 사탄의 침범이 많다. 이때 기도하여라. 나 예수를 불러라.

27. 기도를 못할 때, 기도가 안될 때 그 시간을 허비하는 문제가 생기고, 자기에게 문제가 생긴다.
28. 인간은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다. 못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
29. 잘하는 사람이라도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30. 자기도, 남도 못할 때 잡아 주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어라.
31. 못할 때는 정신 문제도 있고, 유혹 문제도 있고, 사탄의 방해도 있고, 자기 자체적인 문제도 있고, 주님과 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되니 파악하여라.
32. 신은 항상 잘한다. 완전하기 때문이다.
33. 인간도 완전하게 만들어라.
34. 신이 되려면 신과 같이 만들어라.
35. 서로 사랑하는 자끼리도 사랑할 때는 문제가 안 생긴다. 못 할 때 싸우고 헤어진다.
36. 못할 때 이성 문제도 생기고, 음란물도 보게 되고, 자위행위도 하게 되고, 자포자기도 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말씀도 안 듣게 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게 된다.
37. '못하는 때'란, 할 일을 안 하는 때도 해당되는 말이다.
38. 그때 그 순간 그 시간에 꼭 할 일만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39. 못할 때, 순간 죄를 짓게 된다.
40.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불같이 안 하면, 자기를 중심하게 되어 그 순간 죄를 짓게 된다.
41. 못할 때는 자기 욕성으로, 자기중심으로,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이다.
42. 못할 때, 하던 일 멈추고 깊은 기도를 하여라.
43. 이성 문제, 돈 문제, 각종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잘하다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났다.
44. 그 시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 해지거나, 가기는 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여라. (곤고할 때는 기도하여라.)
45. 어린아이가 수영하다 물에 빠지면 즉시 건져 주듯이, 시험에 빠진 자와 어려움에 빠진 자를 즉시 건져 주어라.
46. 살려 놓고 왜 물에 빠졌는지 물어봐야지, 건지기 전에 물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물어보면 말 못 한다.
47. 잘할 때는 안 빠진다. 못할 때 빠진다.
48. 교회 일도 잘하다가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49. 인생 잘할 때는 문제 없다.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한다.

50. 잘할 때는 기분도 좋고 전심으로 행한다.
51. 못할 때는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잘할 때보다 못하다.
52. 못할 때 자신도 정신 차리고, 옆에서 돕고 꼭 잡아 주어라.
53. 잘 못할 때 사고 난다. 정신 차려라.
54. 못할 때 더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된다. 못할 때 주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면 더 잘 못하게 된다. 그때 문제가 솟아난다.
55. 장사도 잘하다가 못할 때, 안될 때 문제가 생긴다. 그때 운영이 안 되고 부도가 난다.
56. 못할 때를 대비하여 연습하고, 기도하고, 예비하고, 몸도 마음도 연단하여 숙달해야 된다.
57. 못할 때, 안될 때 문제가 일어나니 미리 대비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여라.
58. 못할 때, 안될 때 태만하면 큰일 난다. (못하는 때일수록, 안되는 때일수록 기도하며 열심히 행해야 된다.)
59. 섭리사를 떠난 자들은 못하다가, 결국 그 날이 닥쳐서 떠나게 됐다.
60. 계속 못하다가는 결국 절벽에서 떨어지고 만다.
61. 못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같이 하다가는 자꾸 문제가 생긴다.
62. 못하는 자를 그냥 놔두면 곁길로 가고, 내리막길로 달려가게 된다.
63. 못할 때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난다.
64. 운전도 잘할 때 문제가 안 생기고 사고도 안 난다. 못할 때 사고가 나게 된다.
65. 못하는 형제들을 집중해서 잡아 주어라.
66. 건강도 잘 관리할 때는 건강하다가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병이 발생하게 된다.
67. 인간은 '선과 악' 양쪽으로 지향하는 위치에 있다. 무엇을 행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결정되어 떠났을 때는 날아간 새와 같다.
68. 사람은 '선과 악' 두 가지를 놓고 팽팽히 겨룬다. 선 쪽으로 가느냐, 악 쪽으로 가느냐는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가 선으로 가고, 자기가 악으로 간다. 옆에서 선 쪽을 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악으로 갔다면 자기가 갔으니 자기가 다시 좋게 결정하고 자기가 다시 와야 된다.
69. 선도, 악도 본인이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70.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지옥도 가고,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천국도 가고 천국에 큰 집도 얻는다.
71.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보낸 자가 돕되, 자기가 앞장서서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고로 자기가 행함의 주인이 된다.

72.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는 주님께 붙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각과 정신과 심정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잘 못하게 된다.
73. 잘 못할 때 문제가 생긴다. 즉시 잘해야 된다.
74. 항상 중심과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러면 꼭 천국에 간다.
75. 중심자의 욕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본다.
76. 나무를 심어 놓고 잘 관리할 때는 절대 안 죽는다.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죽는다.
77. 잘하지 못할 때, 성공하지 못할 때 실패한다.
78.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79. 인간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자기 마음이니까 얼마든지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악을 안 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자기에게 얼마나 선과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80.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분이라 생각하고 선의 편이 되어, 자기 머리에서 선과 불의가 솟을 때 항상 불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선 편을 들어야 된다. 악 편을 들고 마음을 결정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되어 결국 자기가 악 편을 들은 연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된다.
81. 자기 생각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기가 못 다스려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까지 받게 된다.
82. 잘할 때 자기를 다스리고, 못할 때 자기를 못 다스린다.
83. 못할 때 자기에게 경고의 신호가 울린 것이다.
84. 못할 때는 자기중심, 자기 주관대로 하기 때문이다.
85. 왜 구원받고 따르는 자가 중심자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대로 안 하느냐.
86.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그 귀한 구원의 점수까지 감점되어 한 차원 낮은 단계로 내려간다. 그러다가 계속 못하면 밑바닥까지 가게 된다.
87. 지금은 막바지 때라 못하면 안 되는 때다. 주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저마다 일점일획이라도 흠과 점을 없앨 때다.
88. 못하는 자는 온 교회, 온 섭리사에서 표가 나고, 잘하는 자는 온 교회, 온 섭리사에서 표가 나서 보인다.
89.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섭리사를 보고 말하기를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보다 더 잘한다!” 하고 큰소리친다.
90. 6000년 구원역사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 좋은 때가 바로 이때다. 너희는 이때를 잡았다! (이때 가장 안타까운 운명은 잡았다가 놓치는 자다. 잡았으면 놓치지 말아라.)
91. 인간이 일생 동안 3번의 좋은 때가 있다고 한다. 첫째, 태어날 때 좋고 / 둘째, 결혼할 때 좋고 / 셋째 버슬할 때 좋다고 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첫째, ‘신앙’으로 육과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좋고 / 둘째, 신랑 되신 주님을 맞고 휴

거될 때 좋고 / 셋째, 하늘의 최고 벼슬인 주님의 신부가 될 때 좋다. 이 3가지를 모두 행하는 때가 이때이니 부지런히 행하여라.

92. 보이는 선생을 통해서 안 보이는 주님을 맞는다. '주님'이 영원한 사랑의 유업이다. 천국의 유업이다.

93. 잘하려면 노력해야 된다. 고생돼도 수고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힘들어도 배워야 된다.

94.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깊이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족하게 때가 못하는 때다.

95.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중심자 정신을 가지고 그와 일체 되어 믿고 때가 잘하는 때다.

<2012년 3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2. 사탄은 '사랑의 방해자'다.

3. 주님이 행할 것은 주님이 행하신다. 고로 사람이 행할 것은 사람이 행해야 된다. 저마다 자기기 해야 할 일을 하며, 사탄을 바로 알고 예수님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이 인간의 100% 책임이다.

4. 누구나 자기만 100% 주 뜻대로 행하면, 사탄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되니 사탄을 다스린 입장이 된다.

5. 사탄이 전혀 해를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안 하면, 자기 행위로 인해 해를 받고 무너지게 된다.

6.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항상 문제다.

7. 주님은 허락하셨으나 사탄 때문에 못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자기 때문에 못 할 때도 있고, 타인의 방해로 못 할 때도 있다.

8.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받고 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다.

9. 항상 자기가 사탄보다 크고, 타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라.

10. 자기가 하면 항상 사탄도 물리치고, 타인도 물리친다.

11. 주님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12. 주님과 일체 되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13. 사탄 주관권을 벗어나면 사탄 주관을 안 받게 되고,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면 자기 주관을 안 받게 된다.

14. 주님 주관권에 들어가면 주님 주관을 받게 된다.

15. 나쁜 주관권을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요, 변화요, 휴거요, 구원이요, 거듭남이다. 이것이 차원을 높인 것이다.

16. 부지런히 행해야만 자기가 만들어진다.

17. 남 만들기는 어려워도 자기 만들기는 쉽다.

18. 만드는 것은 절대적인 메시아 예수님의 시대 말씀으로 만든다. 그러나 자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만들어진다.

19. 순간 만들려고 하면 잘 못 만든다.

20. 매일 그날그날 할 일을 행하면서 인생은 만드는 것이다.

21. 집을 지을 때는 1년에 지을 것을 빨리 하면 6개월 만에도 짓게 되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그날그날 할 일을 행하면서 만들어야 되기에 오래 걸린다.

22. 자기를 만들다 보면 아예 만들어진 것은 성격이 고쳐져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되고, 혈기를 안 내게 되고, 항상 양 같은 성격으로 행한다. 마치 시계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갖다 놔도 계속 작동하듯이, 사람도 한 번 아예 만들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만들어진 대로 작동하게 된다.

23. '성격 만들기'다. '행위 만들기'다.

24. '만들기'와 '써먹기'다.

25. 완전히 만들어 놓았어도 써먹어야 된다. 써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

26. 최대한 빨리 만들고, 최대한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27. 항상 주님과 마음을 맞춰서 변쩍이면서, 날면서, 뛰면서 쓰여져야 된다.

28. 주님의 육이 되어서 주님의 정신과 마음과 주님의 몸으로 쓰여져야 된다.

<2012년 3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행하면서 자기가 눈으로 보니 마음과 생각이 자기 주관, 자기중심이 되어 행하지 않게 해야 된다.

2. 매시간 매 순간 확인하면서 행하기다.

3. 매분마다 시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몇 시 몇 분인지 모르듯이, 행하면서 예수님께 확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모른다.

4. 예수님을 시간이라 생각하고 마치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듯이 예수님께 확인하면서 행하여라. 대강 행하는 자는 시간을 대강 알고 행하는 자와 같다.

5. 주님의 계시나 주님의 말씀도 대강 받으면 대충 하게 되고, 할 일도 대강 행하면 대충 하게 된다.

6.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그 사람과 똑같이 그리듯이, 주님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깨끗이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행하여라.

7. 화장실도 대충 대강 갔다 오면 또 가야 된다.

8. 자기 자신이 씻을 것을 안 씻어서 꼬깝함을 느끼듯, 자기가 대충 행하면 주님은 꼬깝함을 10배나 더 느끼신다.

9. ‘증거’도 확실히 배우고 증거하고, ‘행실’도 확실히 배우고 행하여라.
10. ‘온전함’을 철학으로 삼고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네가 잘된다.
11. ‘사랑’을 온전히 하면, ‘미움’이 없는 것이다.
12. 주님은 온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확실히 하되 흠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이런 자를 사랑의 신부로 삼고 같이 행하시고 같이 사신다.
13.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흠도 점도 없이 행하신다. 고로 행하신 일마다 걸작품이다.
14. 몸부림쳐서라도 주님을 따라 하면, 자기 몸이 주님의 몸이 되어 대걸작품 인생 된다.
15.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하면 평생 해도 구원도 제대로 못 받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못 된다.
16. 주님과 떨어진 자는 마치 물에서 나온 물고기와 같고, 땅에서 뽑힌 나무나 식물과 같다. 물고기가 물을 떠났으면 빨리 물에 들어가야 되고, 나무가 땅에서 뽑혔으면 빨리 다시 심어야 되듯이, 어서 빨리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한다.
17. 예수님을 ‘옷’이라 생각하고, 방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님을 입어야 한다.
18. 더러운 때를 닦고 밀고 없앤 곳만 때가 없어지듯이, 더러운 죄를 말과 행실로 깨끗이 회개하여 없앤 것만 깨끗해진다.
19. 생활 승리, 인생 승리다.
20. 자기를 망치는 것은 첫째, 자신이요 / 둘째, 사탄이요 / 셋째, 타인이다.
21. 자기가 자기에게 영웅이요, 관리자요, 행할 자요, 성공시키는 주인이다.
22. 주님은 지시자요, 명령자이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돕기만 하시고, 도저히 못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시고,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 하게 해 주신다.
23.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타인이 해 주기를 바라고 주님이 해 주기를 바라느냐. 못된 성격과 못된 마음과 못된 버릇을 잡초같이 뽑아 없애라.
24. 행하는 것도 버릇되면 자꾸 해진다.
25. 안 하는 것이 버릇 들고 습관 들면, 쉽게 할 일도 태산같이 보인다.
26. 습관 되면 성격이 고정되어, 순간 하면 될 작은 일도 황소같이 크고 무겁게 보인다.
27. 일어나 행위의 빛을 발하여라.
28. ‘천국’은 행하지 않음으로 구원의 주관권에 못 들어가서 못 가게 된다.
29. 부지런한 자가 먼 길을 가고, 천국도 간다.

30. 천국은 멀어서 인생 새벽부터 서둘러 가야 갈 수 있다.

31. 가다가 해 지면 낙원에 머무르게 된다. 선영계에 머무르게 된다.

<2012년 3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재촉하지 않는 우리들을 보시고 답답하여 뒤에서 쫓는 행악자를 보내서 쫓게 하여 주님 품에 뛰어오르게 하신다.

2. 사망 주관권을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관권에 와서 쉬어라.

3. 사람이 서두를 때 10배 더 빨리 하게 된다.

4. 꼭 그 일에 성공하고 안 늦으려면 서둘러라.

5. 시간 없으면 할 것도 못 한다. 사탄은 너 자신을 통해 시간을 뺏는 일을 한다.

6. 시간에 늦으면, 시간 되면 바다에 밀물이 들어오듯 사탄이 침범하는 시간이 된다.

7.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사탄은 항상 곤란함에 빠지게 하여 시간을 뺏는다.

8. 시간이 없으면 물에 빠진 자기 애인을 5분이면 순간 구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구한다.

9. 시간과 성공이다.

10. 시간과 싸움이다.

11. 시간을 뺏어서 주 뜻대로 열심히 행하며 사는 자는 다 성공한다.

12. 시간을 뺏듯이,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뺏어라.

13. 시간을 자기 애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써야 인생 자기 위치에서 성공한다.

14. 어떤 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을 쓰는 자는 영계 시간으로 쓰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많이 쓰게 된다.

15. 자기 정신과 영은 빛보다 400억만 배 빠르니, 육이 정신과 영을 따라 행하면서 시간을 써야 빛보다 빠르게 육의 시간을 쓰게 된다.

<2012년 3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3월 1일 잠언

1. 기회는 시간과 함께 쌓이고 시간과 묶여 있기에 한 번 놓치면 가 버린다.

2. 기회를 잡기 위해 사전에 수고하고 기도하여라.

3. 기회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중심에 예수님을 두라는 것이다.

4. 항상 중심이 주님이 아니면, 주님은 다 필요 없으니 무너뜨리신다.

5.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조건을 세운 자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라 신부 조건을 세운 자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이름을 대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라.
6. 하나님은 자기가 세울 수 있는 조건을 다 세우고 기도해야 들어주신다.
7. 사랑받을 자는 사랑해 줄 자가 원하는 조건을 다 세우고 나올 때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8.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사랑의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된다.
9. 사랑은 사랑의 실천이다.
10. 마음 사랑은 1단계 사랑이며, 행동 사랑은 2단계 사랑이다.
11. 기독교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메시아가 자기를 위해 죽어 주었기에 사랑하는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보고 신부로서 사랑하는 사랑을 못 하고 있다. (왜?) 신부 세계로 와야 되고, 그 시대 주님의 신부의 말씀을 들어야 신부의 사랑을 하게 된다.
12. 성경을 풀 때,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분별했다고 해서 다 푼 것이 아니다. 그때 말한 자의 시대적 배경, 슬픔, 기쁨의 감정을 모두 다 풀어야 된다.
13. 심정과 분별이다.
14. 선생을 따라와도 심정만 뜨거워 따른다고 다가 아니다. 분별력을 갖고 따라야 된다.
15. 제자들 가운데 심정만 뜨거워서 따르는 자들과, 심정도 뜨거우면서 그때그때 분별하고 따르는 자들과 늘 싸워 왔다.
16. '오해'는 미련한 자만 한다.
17. '오해'는 자기 주관과 자기 의지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만 한다.
18. 상대를 아는 자는 오해하지 않고 오히려 옳다 한다.
19. '회개'로 사탄의 인을 지워라.
20. 선생을 좋아하며 따라도 자기 주관과 사상을 못 버리면, 가다가 결국 자기중심과 자기 사상의 골짜기 흑암으로 간다.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3월 1일 잠언

1. 누구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려야 주님도 그가 간구한 것을 해 주신다.
2. 가령 천국에 300명이 들어가도록 어떤 건물을 예비하고 지어 놓았다고 하자. 구원받을 자가 아깝게 자기 책임을 못 하여 100명만 천국에 가게 되면, 그 건물은 100명이 사용하게 된다.
3. 구원받고 천국에 올 자들을 위해 천국에 지어 놓은 건물은 세상에서 구원받고 올 자들이 예상대로 그 수만큼 안 온다고 해서 없애지 않는다.
4. 천국에는 기본으로 건설한 건물들이 있고,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행위로 건설되는 건물들이 있다. 만일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구원의 건물이 지어지다가 그의 구원이 상실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니, 다른 사람이 조건을 세우면 그 집을 자기 집으로 삼게 하기도 한다.

5. 주님의 짝사랑의 한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고로 주님의 짝사랑의 한을 풀어 줘야 누구든지 구원도 사랑도 근본이 이루어진다.

6. 짝사랑은 사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상대도 역시 사랑해 줘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7. 주님은 인간을 짝사랑하신다.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의 사랑의 역사가 이뤄진다.

8. 인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천국을 상속받지를 못한다.

9. '자기 마음'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지불하는 값이다. 천국을 얻는 값으로 '자기 마음'을 주께 100% 먼저 지불해야 된다.

1. 모르는 자에게 명예가 합당치 않다.

2. 어린 자에게 큰일을 맡기지 말아라.

3. 10대와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컷지만 굳어지지 않아서 알았다가도 흔들린다.

4. <인간>은 '뼈와 살'로 되어 있다. 뼈만 있다면 존재하지 못한다. 살만 있다면 걸어 다니지 못한다.

5. <신앙>은 '진리와 은혜'다. 진리만으로는 존재를 못 한다. 은혜만으로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

6. 신앙은 진리와 사랑이다.

7. '진리'는 길이다. '사랑'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야 승리한다.

2.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인간이 제 생각대로 하기에 망한다.

3. 인간은 생각대로 간다.

4. 생각이 가면 육신도 따라간다.

5. 태양이 '불덩이'이듯,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덩이'다. 태양이 '불'로 존재하듯이, 삼위체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6. 태양이 '불'로 존재하듯, 주님은 '구세주'로 존재하신다.

7. 주님은 용서의 존재자이시며, 죄를 청산해 주시는 구세주의 존재자이시다.

8.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해야 한꺼번에 깨닫고 받는다.

9. 말도 그 자리에서 할 말을 해야 이해되고 전달된다.

10. 일도 할 때 매듭까지 지어야 깨끗하다.

11. 일의 매듭을 안 짓고 다른 일을 또 하면 갈 길을 가다 만 것이 된다.

12. 그때 할 일을 못 하면 몇 년씩 가게 된다.

1.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이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좌우하는지 알아라.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은 마치 못을 박아야 할 곳이 아닌데, 평생 안 빠지게 대못을 몇 개 때려 박은 것과 같다.

2. 자기가 뇌에서 결정했기에 잘못된 인식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로만 안다.

3.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을 얼마나 없애기 어려운지 알아라. 사실이 확인 되어야 그제야 올바르게 인식한다.

4. 가령 상상 못 할 대호수를 보고 왔다 하자. 호수는 끝도 안 보이게 컸다. 고로 ‘바다’로 인식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눈으로 봤으니 대호수를 바다로만 인식하고 말한다. 그에게 다시 가서 썰물과 밀물이 없다는 것과 파도가 안 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전에는 모른다. /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인식하고 착각하고 믿고 사는데 2000년 동안 그대로 믿고 왔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육신으로 오시고,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의 육이 휴거된다고 믿고 산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고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시 보여 주시어 그들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 착각과 그릇된 인식관을 돌이킬 수가 없다.

5. 역사는 지나가서 다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고로 기록하고 찍어 놔야 된다.

6. 미래의 주님의 재림도 그때 당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영만 온다는 것을 안 믿는다.

7. 다시 역사하고 돌이키려면 역사를 못 맞고, 주님의 재림도 못 맞고, 휴거도 못 맞는다.

8.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여 자기 육신의 행위로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그 날에 주님을 맞게 해야 된다. 그러니 그 날에 순간 바로 인식관을 돌이킨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겠느냐. 곧바로 그릇된 인식관을 돌이키고 미리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준비해야 자기 육신의 행실을 통해 영을 변화시켜 그 날에 주님을 맞아 휴거된다.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하루를 놓고 살아도 무엇을 하고 사느냐 따라 하루의 삶이 결정되듯이, 인생이 저마다 육을 위해 사느냐 영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2. 사람에게에는 육의 길과 영의 길이 있다.

3. 혼자 가면 육의 길로 간다.

4. 주님의 영광 같이 가야 영의 길로 갈 수 있다.

5. 육의 삶은 사망과 죽음의 길이다.

6. 영의 삶은 영원한 영의 생명의 삶이다.

7. 인간은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 해도 영원한 영의 구원을 못 받는다. 영의 근본자 되시는 주님과 일체 되어 살아야 영원한 영의 구원을 받는다.

8.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 그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영의 길로 가서 영원한 영의 구원을 받는다.
9. 여자 혼자서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듯이, 자기 혼자서 아무리 영적으로 살아도 마음과 행실만 영적인 삶을 살지, 영원한 구원을 못 받는다. 남자 격인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영적으로 사는 삶이 이루어져 영이 구원을 받는다.
10. 혼자 살면 육적으로 산다.
11. 주님과 같이 살아도 주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살게 된다.
12.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곤고하여 영적으로 산다. 그러나 자체의 영적인 삶이지, 영을 구원하는 삶은 살지 못한다. 메시아 예수님과 생각과 모든 것이 일체 되어야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되어 영을 구원한다.
13.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살면 영이 신령하여 다른 사람보다 영의 세계에 대해 잘 알기는 하는데, 영 구원 밖의 영의 세계에 대해 알 뿐이지, 자기 영의 구원과는 무관하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만 영적으로 산 자가 되고, 그 영은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된다.
14. 자기 혼자 영적으로 살아 봤자 자기 영의 세계다.
15. 토굴 속에서 평생 도를 닦고 영의 세계를 배우며 살아도 구원 밖의 영계의 삶이다. 고로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은 그에 해당되는 영계를 거쳐 영의 구원이 없는 세계로 간다.
16.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권 안의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잡신에 의해서 아무리 신령하게 영적으로 살아도 구원 밖의 영적 세계다. (여기까지 전초 잠언)
17.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자기 혼자 영적으로 살면 자기 주권권 안의 영의 삶이다.
18.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영적으로 사는 삶이요, 영의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19. 지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백화점에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사러 갔다. 1년 동안 그 백화점을 샅샅이 뒤져 봤지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그냥 나왔다. 그 돈은 쓸 곳이 없고 필요 없어서 땅에 묻어 버렸다.
20. 영의 세계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여, 내 일생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 몸이라도 다 주고 사려고 3년 동안 영계를 다녔다. 맨 마지막 높은 차원의 영계에 가니 정말 필요한 것이 있었다. 그런데 너무 값이 비싸서 나의 마음도 몸도 영도 다 주고 사야 했다. 사기는 샀는데 내 마음과 몸과 영을 다 주어서 이제 내 것이 없으니 내가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몸과 영을 값으로 받은 자가 사용하게 되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살기로 했다. 그는 영의 근본자 예수님이었다.
21. 자기 마음도, 몸도, 영도 다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주님의 것으로 삼고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래야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
22.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는 아직도 100%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한 자다.
23.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것이 되고 싶으면 그에게 자기 마음도 몸도 영도 다 줘야 된다. 다 주고 자기는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께도 이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 영생을 얻을 자다.
24. 주님 뜻대로 영적으로 살려면,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자기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몸과 영을 다 드려야 한다. 그래

야 주님이 주님 뜻대로 살아 주신다.

25. 공중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탔으면, 그것을 타 보는 시간에는 비행기 주인에게 자기 마음과 몸을 다 맡겨 놓고 1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야 된다. 그래야 비행기 주인이 비행기에 태우고 다니며 공중을 날아다닌다. 주님께 이같이 해 드려야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영의 구원을 받게 된다.

26. 주님께 계시를 받는 자들도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과 영을 다 주님께 드려야 주님이 주님의 차원으로 온전히 말씀하신다.

27. '신앙'은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다.

28. '사랑'은 상대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다 줘야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인간이 주님께 다 맡기고 드려야 주님이 그 삶에 관여하신다. 고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29. '신앙'은 주께 다 드리기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다 받기다.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육'은 자체로는 무의미하고, 무익하고, 무식하고, 무가치하다.

2. 자기 영이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영이 육을 사용해야 육이 가치 있고 온전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행하며 천주적 가치로 산다.

3. 육의 삶은 영에게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말은 해 봤자 목적을 이루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다 함이다.

4. 육은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영이 유익하다. 고로 육은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5. 항상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땅으로 세상으로 간다. 고로 육 혼자 살면 항상 땅으로, 세상으로 가는 삶을 산다. 평생 동일하다.

6.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을 자체적으로 살게 그냥 놔두면 온종일 육의 행실을 한다. 영이 함께해야 된다. 육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못 한다." 하셨다.

7. 육은 1초라도 육의 삶을 살아야 존재하기에 육의 삶을 산다. 그러나 영이 육과 함께하면 영의 삶도 살고, 육의 삶도 산다.

8. 주님은 영이다. 인간은 육이다. 인간은 혼자 놓아두면 평생 육으로 산다. 인간 자체에 육과 마음과 영이 있으나, 인간 자체적으로는 '육'이다. '영'이신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인간은 육으로 산다.

9. 한 여자가 있는데 혼자 놔두면 24시간 여자로만 산다. 남자가 가서 함께하면 그때부터는 다르다. 둘이 함께 사니 여자의 삶도 살면서 남자의 삶도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인간도 그대로 놔두면 평생 육적인 삶만 산다. 전 세계 70억 명이 모여 살아도 인간은 인간이다. 육이다. 주님을 만나야 육의 삶에서 벗어나 영의 삶을 살게 된다.

10. 육은 세상이요, 영은 하늘이다.

11. 하나님은 인간을 육과 영으로 창조하시고, 육은 육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영은 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12. 창조자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육도 무익한 삶으로 끝나고, 영도 무익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
13.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은 일생 동안 인생 사막을 헤매다 끝난다.
14. 적에게 쫓기는 자는 자기가 갈 목적지까지 날면서 가게 된다.
15. 어차피 가야 할 곳이니, 적에게 쫓기면서라도 좋다고 하며 가야 된다.
16. 적에게 쫓긴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안 쫓기면 태평하여 그 자리만 돌다가 갈 길 못 가고 광야에서 늙고 끝난다.
17. 이왕 갈 길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쫓으면서 독촉해서 가야 된다. 해 지면 못 간다.
18. 서산의 해가 남았을 때가 마지막 기회다. 그때 죽지 않을 만큼 갈 길을 재촉하면서 가라. (그때가 이때다.)
19. 하늘길은 가는 대로 이익이다.
20. 세상길은 가는 대로 무익이다.
21. 세상에 매인 줄은 1000개라도 다 끊고 가야 된다. 쇠밧줄과 금밧줄로 묶였어도 다 끊고 가야 된다. 세상 사랑 밧줄이 100개나 묶였어도 다 끊고 가야 된다.
22. 천국에 가면, 세상이 사랑해 주는 것은 그림자 사랑이고 동물이 사랑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다. (여기까지 붓을 강하게 눌러 썼다.)

<2012년 3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땅에서 성공하는 자는 많은데 하늘에서 성공하는 자는 적다.
2. 땅에서 성공하면 인생 한때요, 길면 두 때다.
3. 하늘에서 성공하면 그 기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기간이다.
4.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은 너무 넓고 성공할 것들이 너무 많다.
5. 육신이 땅에서 성공해 났더니 인생 해가 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 끝날 것만 쌓여 있어 영이 가지고 갈 것이 없다.
6. 하늘에서 성공해 났더니 해 놓은 것이 하늘에 쌓였다. 육신은 죽고 영혼이 영원한 세계로 가니 찬란한 영광의 시작이다.
7. 하늘에서 성공해 났더니 땅에서 성공한 것까지 모두 하늘에 가 있어 영원하다.
8. 땅에서 성공한 자는 땅만 돌고 돈다.
9. 땅의 성공, 명예, 욕망, 권세, 영광은 인생의 해가 기울면 모두 짐이다. 다 벗어 놔야 그나마 가쁜 숨을 쉬게 된다.
10. 하늘의 성공, 명예, 권세, 영광은 인생 서산의 해가 저서 육신이 죽기까지 모두 지고 안고 누리면서, 육신이 죽으면 영이 비행기 타고 가듯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누리고 산다.

11. 땅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은 때가 되면 육신과 함께 사라지고, 하늘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은 영이 가지고 간다.
12. 땅의 성공, 명예, 영광의 마지막에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자기 죽은 시체 하나만 남는다. (1~11번까지는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받아 썼는데, 주님께 하나 말해 달라고 하니 12번 잠언을 주셨다.)
13. 세상에서 지구 세상을 자기 것으로 사서 누렸어도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서 하늘나라의 땅 한 평을 얻고 산 것만도 못하다.
14. 세상을 다 얻고 사는 자나 못 얻고 사는 자나 겨우 자기 인생 살고 간다. (주님의 두 번째 잠언이다.)
15. 세상에서 살 때 하늘나라를 얻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이 거지가 되어 영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산다.
16. 이 세상은 육을 중심한 세상이라서 영의 세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17. 그러나 이것을 깨달아라. 육은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죽고, 육이 죽으면 영이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고로 영은 '잠깐 살다가 영의 세상으로 올 테니...' 하고 걸 세상을 걸눈질하고 본다.
18. 영의 세계의 영들은 육의 세상은 자기와 상관없는 세계이므로 육의 세계에는 관심 없이 살아간다.
19. 육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간 영들은 육의 세계의 생각을 잊고 산다.
20. 육의 세계 사람들도 육을 가지고 사니, 영의 세계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
21.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자기 영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은 육이 죽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의 세계로 간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 주권권 밖의 영의 세계로 간다.
22. 고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시간을 아껴라. 영을 위해 살아라.
23. 시간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곳을 산소용접 하여 때우듯 해야 된다.
24. 시간 빠져나가는 곳을 안 때우고 쓰면, 바람 빠져나가듯이, 저장된 가스 빠져나가듯이 다 그곳으로 빠져나간다.
25. 영을 위해 쓰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기다. 힘이다.
26. 시간이 모자라든지 없으면, 그 날은 갈 곳을 못 간다.

<2012년 3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해를 받은 자에게로 자기의 악심이 흘러간다.
2. 악심은 빨리 크고, 선심은 느리게 크다.
3. 원수를 자기가 갚으면 법에 저촉되니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갚아 주시게 해야 된다. 이것이 최고 안전하다.
4. 악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의 갑절이나 더 갚아 주신다.
5.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데 해당되는 것을 못 하여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6. 지금 이때는 양이 되었는지, 염소가 되었는지 결정된 대로 골라 쪼개는 때다.

7. 지금 염소가 된 자는 다시 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끝났다.
8. 주님은 모든 자들이 양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자기가 자기를 염소로 만들었고 자기가 자기를 양으로 만들었다.
9. 태어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나고 염소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 중간에서 태어났다. 자기 삶으로 인하여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한다.
10. 양과 염소란, 선인과 악인을 비유한 말이다.
11. 하나님은 악을 소멸시키니, 악은 절대 자신이 회개함으로 악을 소멸시키고 없애야 된다.
12. 하나님은 악의 심판자이시므로 악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 고로 회개하여 악을 없애야 된다.
13.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 영이 사망으로 간다. 남의 죄로 가는 것이 아니다.
14.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기에 사망으로 가게 된 것이다.
15.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해 났으면 다시는 사망으로 안 간다.
16. 가룟 유다도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해 놓지 못했기에 사망으로 간 것이다.
17. 섭리사에서도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 자는 세상으로 가고, 사망 음부로 갔다.
18. 자기도 못 넘어가게 성벽을 높이 쌓아 놔야 된다. 이런 자가 자기 육도 영도 온전히 구원한 자다.
19. 섭리사에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해 놓은 자가 많지 않다.
20.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한 자는 다시 타락하지 않는다. 다시 흑암으로 가지 않는다.
21.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 자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때에 따라 또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흑암으로 갈 수도 있다. 온전히 구원되지 못한 자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맘을 놓을 수 없다. 모두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해 놓지 않았기에 잘 있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흑암으로 간 것이다.
22. 자기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여라.
23. 자기 영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는 추수한 곡식과 같다.
24.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한 자는 농사짓는 중의 곡식과 같다.

<2012년 3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쏘는 적을 쏘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
2. 자기가 해를 받아 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해 주었으나, 원수가 계속 원수 짓을 하면 사랑할 것 없다. 행위대로 대해 줘야 된다.
3. 원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못 펴게 되니, 여호수아같이 원수의 행위대로 대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펴야 된다.

4. 의인들의 원수는 하나님의 적이다.
5.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주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다. 고로 원수를 사랑해 주시고, 원수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역사를 펴셨다.
6.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의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는 ‘악인을 심판하셨다.’ 함이다. 하나님을 따라 같이 행해야 된다.
7.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하는 원수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인의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다 갚아 주신다.
8. 원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원수들은 그 사랑을 받고 의인들을 더 괴롭힌다.
9. 악인을 사랑하면 죄가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악인을 회개시키고 그 행위대로 대해 줘야 된다.
10. 행악자는 사탄의 몸이 되어 행하니, 행하는 일마다 악하다. 고로 의인들이 모두 일어나서 행악자를 대면하여 싸워야 된다. 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싸우고, 기도함으로 싸워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같이 담대히 행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다.
11. 독사를 사랑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잡아 없애야 독사가 어린 자들과 사람을 물어 죽이지 않는다. 사람을 물어 죽이는 독사를 모두 다 잡아 없애라. 기도하여라.
12. 야수들은 사람을 해한다. 야수를 사랑하다가는 결국 죽게 된다.
13. 지혜로운 자는 야수를 보면 포수에게 말하여 잡아 없애게 하고 평생 편히 산다. (지혜로운 자는 악인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의의 심판을 하게 한다.)
14. 악인들은 매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악인들이 매일 의인들을 잡아 죽여 하나님의 수고가 헛되게 한다.
15.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인에게서 쪼개 내시어 깊은 험산에 넣고 영원히 못 나오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16.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니 악인을 없애게 기도해야 된다.
17. 야수가 어릴 때는 길러도 모른다. 야수가 크면 사람을 잡아먹으니 그때는 포수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포수가 바로 잡아 없앤다.
18.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사람을 물어 죽일 동물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야수 새끼는 바로 구분하여 동물원에 갖다 주든지, 포수에게 말하여 없애야 된다.
19. 야수는 쇠고랑에 묶어 놔도 야수다.
20. 야수는 키우지 말아라. 염소는 아무리 사랑하고 키워도 양이 안 된다. 염소는 염소 농장에 팔아 버려라.
21. 섭리사에서는 야수들과 뱀들과 독종들은 기르지 말고 모두 쪼개 내어라.
22. 이와 같이 자기 마음속의 원수 같은 악의 마음과 불의의 생각은 모두 쪼개 내어 버려라.

1. 자기 할 일을 놓고 편하게만 살면서 고생된다고 안 하고 살다가는 육도 마음도 영도 병들어서 사망에 처하게 된다.
2. 편하려고 기도 안 하고 사니, 결국 육도 마음도 영도 고통이 온다. 이는 꼭 할 일을 안 했기에 찾아 온 고통이다.
3. 안일주의는 자기를 패망시킨다.
4. 고생돼도 할 일을 다 하고 편안하여라.
5. 할 일 안 하면서 놀고, 쉬고, 눕고, 잠을 자면 결국 고통의 날이 닥쳐온다.
6. 편안하려고 밥을 안 먹고 늘 눕고 자기만 하던 자는 결국 병들어 누워 버린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7. 편하게만 살다가 가난해졌다.
8. 편하게만 살다가 죽음이 닥쳤다.
9. 편하게만 살다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됐다.
10.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만 살다가 사망길로 갔다.
11. 할 일 안 하고 편한 자세로만 있다가 팔다리가 저리게 됐다.
12. 기도할 때 편한 자세로 기도하다가는 결국 잠자게 된다.
13. 할 일을 하면서 고생하고 살아야 후에 편히 산다.
14. 할 일을 안 하고 편한 것은 유혹의 편안함으로 결국 고통의 편안함이 된다.
15. ‘현재의 고생’이 ‘현재의 편안’보다 미래에 편하다.
16. 편하려 눕지 말고 놀지 마라. 이는 점점 더 고통길로 가는 짓이다.
17. 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편함이다.
18. 사탄은 인간 우선권의 편안함으로 꾀어 편하게 한 후에 결국 망하게 한다.
19. 왕의 어명을 받고서, 누워 잠자지 마라.
20. 모든 사람들이 그날그날 하나님의 어명을 받고 있다. 어명을 받고 새벽부터 행하여라. 할 일을 다 하고 쉬고 먹고 즐겨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편하게 있느냐.
21. 할 일이 없는 자는 없다. 할 일을 안 하면서 편하게만 지내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고, 못 산다.
22. 하나님과 주님과 사랑하며 영원히 살려거든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23. 깨닫는 것은 아는 것이다. 깨닫는 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살 길을 깨달으면 산다.
24. 할 일이 없는 자,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자는 낮과 밤을 투자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라도 하여라.

25. 무엇을 깨달아야겠는가? 첫째, 자기를 향한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그리고 실천하여라.
26. 편하려고 앉아서 놀기만 하고 고생된다고 기본 운동도 안 하는 자는 젊은 자도 나이 든 자도 무기력해져서 병든 몸이 된다.
27. 편하려고 매일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자는 결국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하지 않는 자가 된다.
28. 매일 할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자는 결국 몸도, 마음도, 영도 편안한 자가 된다.
29. 원수와 적은 편안한 틈을 타서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30. 별처럼 나비처럼 매일 나는 삶이다.
31.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할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만 살면 인생 망한다.

<2012년 4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마음은 공중의 바람과 같다.
2. 인간의 마음은 초마다 변하는 아주 약한 존재다.
3. 육보다 마음이 약하다.
4. 인간의 마음은 보는 대로 변하고, 듣는 대로 변하고,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변화무쌍한 존재다.
5. 서두르고 재촉하면 날아가고, 태만하고 여유 부리면 기어간다.
6. 일찍 했다고 여유 부리면 늦게 한 것과 똑같다.
7. 밥은 인생의 엔진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먹는다. 밥을 먹고 육을 통해서 영원한 영을 존재시켜야 한다.
8. 별판의 100m 앞에서 포식자가 사냥하러 오는데 들짐승들은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 한 마리만 깨도 산다.
9. 잘 사는 자들은 모두 젊은 날에 편안하게 살지 않고, 몸부림치고 고생하며 인생을 뛰며 산 자들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10. 편한 습관과 버릇은 자기를 망치게 하는 생활이다.
11. 안일주의가 자기를 가난하게 만들고, 안일주의 습관의 줄이 자기를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간다.
12. '20분'은 편하게 앉아 있든지 누워 있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 지나간다. 하루 24시간에 비해 20분은 순간이다. 그러나 그 순간 편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뛰어 봐라. 젊은 사람은 20분 동안 2000m 이상을 뛴다. 매일 그렇게 하면 온 몸이 건강해진다. 그런데 매일 20분씩 편안히 앉아서 지낸 사람은 건강이 쇠약해져 평생 병든 몸에서 못 벗어난다. / 매일 20분의 시간을 가지고도 할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이같이도 영향이 크다. 그러니 온종일 꼭 할 일을 안 하고 안일주의로 편안하게 사는 자들은 얼마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겠느냐. 저마다 계산해 보아라.
13. 1분 동안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간 했더니, 그것이 세계적인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1분

동안 편안하게 가만히 있었으면 무슨 유익이 내게 있었으랴. 1분 동안 순간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대작품으로 선정되고, 그로 인하여 수십 점의 그림을 더 그리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인생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14.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로 창조되었으니 저마다 귀히 써라.

15.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하게만 살려고 각종으로 머리를 쓰고 편안한 길만 찾아간다.

16. 사람들은 자기 기쁨, 자기 마음의 편안함, 자기 몸의 편안함만 찾아 안주한다. 그러나 이렇게 산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삶의 법칙에 따라 때가 되면 홍수와 비바람에 다 무너진다.

17. 고생돼도 돌을 갖다가 쌓고 그 위에 인생 삶의 집을 지어라.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 범람한 물이 지나가도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구경하며 보람을 느끼리라.

18. ‘저 사람은 편안히 눕고 앉아서 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편히 사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지?’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그보다 더 앞날의 희망의 인생을 살고 있다.

19. 인생 고생하면서 주 안에 살고 끝까지 가 봐라. 홀연히 사망의 계곡을 벗어나 희망의 열매가 끝도 안 보이게 보이는 대지에 이르게 된다.

20. 한번은 너무 피곤하여 1시간을 가지고 누워서 자는 데 썼다. 한번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1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글을 봤다. 그랬더니 1시간 동안 글로 전해 주신 말씀이 100가지가 넘었다. 그리고 피곤함이 홀연히 사라지고, 정신도 육도 영도 다 풀렸다. / 편안함으로 인하여 얻은 것은 1시간의 잠이었고, 고생함으로 인하여 얻은 것은 주님의 100가지 생명의 말씀이었다. 잠으로만 피곤함을 풀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은 “나와 함께 피곤함을 풀어도 피곤함을 푸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셨다.

21. 팔다리가 저리고 무기력할 때 풀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앉아서 편히 손으로 팔다리를 주무르기, 제자리에서 뛰기,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 돌기 등이다. 더 크게 풀어 주면 온몸이 운동이 되고, 작게 그 부분만 풀어 주면 그 부분만 운동이 된다. 모두 앉아서 주무르기 식의 편안한 삶만 산다.

22. 사람이 어떤 것을 하려고 마음먹고 하면 순간의 시간에도 많은 것을 한다. 그러나 생각의 운전대를 앞에 놓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면, 마치 잠결에 눈을 뜨고 가만히 누워 있는 시간이 가듯 몇 십 분이 금방 지나간다.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행하면 평생 남는 일도 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평생 말해 줄 것도 얻게 된다.

<2012년 4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시에서나 꿈에서나 ‘나’라는 주체와 상대가 항상 겨룬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책임을 못 하면 상대에게 끌려간다.

2. 나와 겨루고 다투는 상대는 육에 속한 것으로서 사탄편이다. 내가 제 시간에 일어나 할 일을 하면 상대에게 계속 끌려가지 않는다.

3. 새벽 1시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들판에 내 짐이 지게에 짊어져 있어 그것을 지려다 지게 짐이 넘어졌다. 눈을 감고 있을 때 내가 그 짐을 또 지려 하여 잠을 깨 버렸다.

4. 새벽 1시에 일어났다가 또 잠을 자니, 다른 곳에 무거운 짐이 있었다. 그때 나의 상대가 되는 자가 그 짐이 자기 것이라고 하며, 그 짐을 자기 집으로 옮겨 달라고 했다. 이때 눈을 떠 시계를 보니 1시 15분이었다. 깨달고 일어났다. 기도하려고 일어났다가 또 잠을 자면, 나와 겨루는 상대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그의 주관을 받으며 행하기 때문이다.

5. 내 육신을 주님 뜻대로 다스리면, 육신이 육에 속하여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6. 욕신이 주님 뜻대로 해야 욕이 사탄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7.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주실 때까지가 기도 기간이다.
8. 기도하면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7년,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1년, 어떤 것은 40일, 어떤 것은 21일 만에 들어 주신다. 기도를 들어 주실 때까지가 기도 기간이다.
9. 기도는 일이다. 기도 기간은 건물 공사 기간과 같다.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일해야 건물이 지어진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 공사를 하는 것이다.
10.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결심함으로 말로 접수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
11. 영적인 말들은 육적인 세계의 것이 아니라 금방 잊어버린다.
12. 육적인 것은 그 차원이 육계에 있으니 늘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차원 높은 곳에서 본 것은 그 단계에서 조금만 내려와도 잊어버리게 된다. 바로 보고 듣고 기록해야 된다.
13. 자기 마음을 비워야 자기가 원하는 자의 마음과 심정이 온다.

<2012년 4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도 안 해서 시대가 망했다.
2. 기도 안 해서 세계가 망했다.
3. 기도 안 해서 종교가 망했다.
4. 기도 안 해서 구 종교 역사가 새 종교 역사로 못 오고 망했다.
5. 기도 안 해서 개인이 망했다.
6. 기도해야 구원을 받는다.
7. 기도해야 사탄을 이기고 생명길을 가게 된다.
8. 기도해야 주님을 만난다.
9. 기도 안 하는 자가 자기 뜻대로 한다.
10. 성경을 보아도 기도를 안 하며 보면 글만 보는 것이다.
11.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안 하고 들으면 말만 듣는 것이다.
12. 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과 친해지지도 않고, 하나님 예수님과 뜨겁게 진정 사랑하지도 못 한다.
13. 기도 안 하는 자는 주님을 믿어도 영과 욕이 변화되지 않는다.
14. 기도 안 하는 자는 거의 영이 사망권에 갇혀서 근본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15. 기도 안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하지 않는다.

16. 기도는 설교다. (참고 : 선생이 새벽에 늦게 일어나서 기도하니, 영계에서 한 장면이 보였다. 내가 설교를 안 하니 모두 모였다가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다. 선생이 제 시간에 일어나 기도할 때는 모두 모여 설교를 듣고 있었다. 내가 기도하면 모두 설교를 듣듯 그 기도소리를 듣고 살아났다.)

17. 기도하듯이 설교도 하는 것이다.

18.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다.

19. 기도 안 하는 자는 목욕 안 하는 자와 같다.

20. 기도해야 정신·마음·생각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된다.

21. 하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모르드개를 모사하여 죽이려 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시어 하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계획한 대로, 정한 날에 그 행위대로 모르드개를 대신하여 하만이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

<2012년 4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선택된 땅을 개발하듯, 선택된 자를 만들고 개발한다.

2. 선택되지 않으면 너도 나도 힘들다.

3. 하나님의 역사는 예비 된 자들을 데리고 한다.

4.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근본으로 선택된 자는 아니다.

5.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니 모두 몰려 왔다가 나간 것이다.

6. 하나님의 역사에 불러 왔어도 그때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 못하면,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베임을 받고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

7. 한번 갈려 가면 영원히 못 만난다. 사탄 편 사망 세계로 갈려 가기에 영원히 못 만나기도 하지만, 하늘 편 세계로 가도 자기 행위대로 차원마다 각각 다른 세상에서 거하기에 한번 갈려 가면 영원히 못 만난다.

8. 한 지구 세상에서 살아도 서로 뜻이 다르면 못 만나고 죽듯이, 영의 세상에서도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는 영원히 같이 못 간다.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차원대로 영원히 다른 세계 다른 주관권에서 존재한다.

9. 천국도, 낙원도, 선영계도 각각 차원대로 또 나뉘지고 쪼개져 존재한다.

10.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만 전체를 보고 판단하신다.

11. 태속에서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면, 일생동안 결정된 성별대로 산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 영혼이 만들어지면, 육신이 죽고 영이 영계에 갔을 때 세상에서 만들어진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서 영원히 산다.

12.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사명만 제대로 하면 영원히 그 위치에서 산다.

13. 잔칫집에 오도록 선택 받고서도 쫓겨난 자가 있고, 아예 선택을 못 받는 자도 있다.
14. 섭리역사에 왔다가 자기 사명을 못 해서 나간 자는 나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게 된다.
15.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 혼자서는 구원의 삶을 살며 존재하기 어렵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구원역사에 들어와서 구원자를 따라가는 것을 상실하면, 겉보기에 육신은 멀쩡해도 그 영은 이미 흑암 세계에 가 있다.
16. 구세주의 뜻을 벗어나면, 마치 왕벌을 떠난 한 마리의 벌같이 홀로 존재하니 꿀도 못 만들고 사는 것이 어렵다.
17. 벌통에서 100마리, 200마리의 벌이 나와서 따로 살아도 존재하지 못한다. 적어도 30000~60000마리가 되어야 조직이 되어 꿀을 만들며 존재한다.
18. 하나님의 뜻과 조직을 벗어나면, 그 영들은 거의 구원을 상실한다. 그 영이 영계에 가면, 자기 육의 행위대로 그 수준의 주관권에서 머물다가 결국 흑암으로 사라진다.
19. 영계는 수만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을 별판의 수백 가지 곡물과 채소들이 정리되듯이, 결국 선과 악으로 정리된다.
20. 저차원의 영계에 간 영들은 때가 되면 대지의 풀같이 죽음으로 사라진다.
21. 자기 마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좌우시킨다. 자기 마음이 악하여 세상에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 영이 지옥에 간 것이다. 자기 영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자는 세상에서 살 때 선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절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22. 하나님과 주님이 시대에 보내신 자를 떠나가면, 육도 사망권에 처하게 되고 그 영도 영계에서 사망권에 처해 있다.
23.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계와 영계를 정리해야 내가 편하다.” 하셨다. 하나님은 육계와 영계 정리 중이시다. 무엇을 정리하겠느냐. 선과 악을 정리하신다.
24. 역사에 참석도 못 할 자는 모르는 게 좋다.
25. 끝까지 못 갈 자는 아예 데려가지 말아라. 천국에 가다가 낙원에 놓고 갈 영이라면 모르지만, 땅에서 하늘로 이륙도 못 하는 영은 데려가지 말아라. 데려가다가 자기 갈 길만 더 못 가게 된다.

<2012년 4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해당되는 차원의 마음밖에 안 된다.
2. 휴지를 가지고서 화장실을 가는 데 쓸 수밖에 없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는 데 쓸 수밖에 없다.
3. 인간이 천국에 가는 삶을 살려면,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된다.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는 삶을 살 수가 없다.
4. 같은 엔진이라도 자전거 엔진, 차 엔진, 비행기 엔진이 다르다.
5.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짐승보다 더 나은 정도다.

6.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에서 사니, 인간의 마음을 세상에서 사는 수준 정도로만 창조해 놓으셨다.
7. 그러나 인간의 영이 천국에 가서 살게 하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받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8. 육의 마음과 생각은 흐릿하고 확실성이 없다.
9. 영의 마음과 생각이 또렷하고 확실하다.
10.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인간에게 와야 확실한 마음이 된다.
11. 사람의 흐릿한 마음은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또렷해진다.
12. 확실한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을 위해 실천해야 마음이 또렷해지고 확실해진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흐릿하다고 기도할 때)
13. 인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할 때 더욱 확실해진다.
14.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확실해진다.
15. 몸으로 행하여 피부로 느껴야 생각이 확실해지고 강해진다.
16. 영으로 보고 듣고 느낄 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확실해진다.
17. 육의 생각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몸에 닿을 때만 자극적으로 느껴진다. 고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몸에서 떨어지면 뇌에서 잊게 되어 생각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 아예 생각조차 없어진다.
18. ‘살아 있는 실천 교육’이란, 듣는 자의 뇌에 행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넣어 주어 실천하게 해 주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교육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
19. 한두 번 가르치며 교육해 주는 것은 교육하고 가르치는 자의 임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
20. 주님이 몸으로 쓰는 자의 교육과 가르침은 상대의 뇌에 가르친 것을 온전히 입력시켜 그것을 실천하게 해 주기까지 하는 교육이다. 그는 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21. ‘배우고 아는 시험’은 일시적인 것이다. ‘행하는 시험’이 매일 이루어져야 제대로 배운 자다.
22. ‘이론’은 아는 것이고, ‘실천’은 얻는 것이다.
23. 아는 자는 많아도 그것을 실천하여 얻는 자는 드물다.
24. 아는 것은 순간에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실천을 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린다.
25. 아는 것은 순간이고, 실천은 긴 시간이다.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는 목적을 잘 먹고 잘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좋은 집을 얻는 것에 두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을 믿게 하시는 목적은 오직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 앞에 최고의 재물이요, 영화요, 권세요, 좋은 집이요, 유산이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2. 주님은 오히려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게 하시며 천국을 위해 '사랑'으로 부귀영화를 대신하라고 말씀하신다.

3. 주님의 사랑을 최고 유산으로 삼고 사는 자는 그 삶이 희망의 삶이 되었다.

4. 돈을 벌어도 세상 어떤 것을 얻어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지, 혹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지에 따라 그 삶이 다르다.

5. 돈과 물질을 가까이할수록 구원과 멀어지고, 주님의 사랑과도 멀어지고, 주님과도 멀어진다. (순간 끝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등지지 말아라.)

6.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자기 재산으로 얻을 때, 주님은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7. 절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주님께 투자해 봐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다.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신다.

8. 주님과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여라. 그렇지 않고 행하면 사탄이 다 가지고 간다.

9. 주님을 전체 공동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너 개인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조건을 세우는 대로 자기 개인의 것이 되는 주님이시다.

10.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 보지 않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11. 세상 남녀 이성의 사랑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 봐야 근본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사랑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된다. 해 봐야 된다.

12. 세상 사랑은 생활로 느끼고, 심정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낀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으로 보고 느끼는 사랑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근본된 사랑이다.

13. 세상 사랑으로 천국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는가?

14. 세상 사랑은 겉 사랑이고, 주님 사랑은 속 사랑이다.

15. 세상 사랑은 일순간의 사랑이라 불안하고 허무하다. 주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16.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주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만 보이고, 오직 그만 사랑하신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세상만 쳐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온갖 것을 보는 대로 행하며 산다.

17. (주 편) 네 눈에 내가 보이게 나타나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느냐.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 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느냐. 내가 네 눈에 안 보여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안 해 줘도 나 예수가 너를 늘 보호하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 주어 지금 네 육이 죽어 흙이 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네 영혼이 사망권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를 100% 사랑하니 너도 나를 100% 사랑하며 살아 보아라.

18. (주 편) 나 예수는 영이라 너희 육의 눈에는 안 보이니, 너희가 늘 보는 나의 육을 세워 그를 통해 역사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육과도 일체 되지 않으니 나 예수를 못 본다. 나의 육과 일체 된 자는 나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나와 일체 된다.

19. (주 편) 나의 육과 일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가 되어 사탄이 힐문하고 괴롭히고 공격한다.

20. (주 편) 나의 욕을 제대로 모르니 나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
21. (주 편) 너희 선생이 세운 자를 제대로 안 따르면 너희 선생과 가깝겠느냐.
22. (주 편) 너희가 나의 욕과 일체 되면, 사탄이 너희도 너희 선생도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23. (주 편) 너희가 선생과 일체 되면, 사탄이 너희를 이용해서 선생을 물고 늘어지지 않는다.
24. (주 편) 너 혼자 가면 반드시 영적 강도인 사탄을 만난다.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25. (주 편) 사탄은 너희를 얹으려고 수백 가지 생활의 올무를 너희 앞에 놓는다.
26. (주 편) 나의 욕과 일체 되면 나 예수와 일체 되어 사탄이 놓은 올무 길에 해당되지 않는 길로 간다.
27. (주 편) 나 예수의 말대로 하여라.
28. (주 편) 매일 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를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네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활동을 못 한다.
29. (주 편) 성자 나 예수가 안 보이듯이 네 영도 안 보인다고 관심 없이 살지 말고 막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영혼이 멸망한다.
30. (주 편) 나는 만왕의 왕이요 전능자로서 너희 각자를 위해 애태우는데, 너희는 태평하게 사는구나.
31. (주 편) 오늘 나 예수가 재림한다면 “자신 있다. 나는 100% 했다.” 하는 자 안에서만 영 휴거가 가능하다. 이것은 답안지다.
32. (주 편) 이 주일에 나 예수가 재림한다고 생각하며 정신 차리고 영과 욕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고쳐라. 그래야 변화된다.
33. (주 편) 이 시대 나의 욕이 되는 중심자는 항상 “오늘로서 삶이 끝난다.”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그날 다 끝내고 살아왔다.
34. (주 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깐 살기 위해서는 온종일, 1년 내내, 평생 동안 몸부림치면서 산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을 위해서는 자기 감정에 의해 일순간씩만 투자하며 사니, 결국 그 영이 어디로 가서 살겠느냐.
35. (주 편) 집에 불이 났는데 잠자는 자는 보는 자의 속을 태운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그러하다.
36. (주 편) 매일 밥 먹고 자듯이 네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탄이 네 영혼을 이기게 되어 더 이상 생명권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37. (주 편) 선생 기도할 때 같이 해야지, 이때 못 하고 나중에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조건을 세워도 헛수고다.
38. (주 편) 무거운 짐은 다 같이 들 때 들어야지, 혼자서는 옮기지 못한다. 이와 같이 기도도 선생과 너희가 일심해서 같이 해야 된다. 나의 욕과 같이 일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에 나 예수가 함께한다는 것이다.
39. (주 편) 기도하는 자만 나를 느껴 보고, 영의 눈으로도 보게 된다.

40. (주 편) 기도해야 이해된다.

41. (주 편) 기도해야 변화되어 그 위치에서 떠나 더 차원 높은 세계로 가게 된다.

42. (주 편)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너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행하는 사탄의 그 괴이하고 야비한 술법을 알 것이다.

<2012년 4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행함은 열매를 맺은 단계다. 믿음은 꽃을 피운 단계다.

2. 과일나무가 있어도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를 가꾸고 퇴비하는 등 그 행함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고 못 맺게 되기도 한다. ‘자기’라는 과일나무를 어서 가꾸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열매를 열게 하고, 열매를 맺은 자는 키워라. 주님은 꼭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열매를 따러 오신다.

3. 천국에서는 사랑을 보는 것이 먹는 것이다.

4. 황금은 자기가 안 먹어도 보는 것이 취하는 것이다. 천국 사랑이 이러하다.

5.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근본은 자기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신랑으로 보고 사랑하는 것이다.

6.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표현은 수백 가지다. / ①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② 주님의 욕이 되어 살면서, 그 말씀을 때에 따라 합당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③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돕고 위해 주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④ 주님의 몸 된 성전을 아끼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⑤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돕고 관리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⑥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끊고 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이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7. 주님의 영(성자 본체의 영)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해도 그 앞에 막 못 나타나신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는 것을 믿어라.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은 매일 열매로 열려 있고, 마음에 깨달은 것은 꽃으로 만발해 있다. 믿고 늘 기도하여라.

8. 주님과 자기 사이의 한 줄은 ‘오직 사랑 줄’이다. 믿음도, 그 어떤 소망도 사랑 줄 하나 만들기 위해 있는 것이다.

9.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유산된다.

10. 주님의 사랑과 그 욕이 되는 자의 사랑이 확실해도 자신이 확실히 행하지 않으면 그 위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11. 신앙이 힘든 자는 주님의 사랑과 그 욕이 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이 없는 자다.

12. ‘사랑의 힘’은 자기가 할수록 받는다.

13. 구원도, 휴거도, 믿음도, 힘도, 행함도 모두 ‘사랑’에서 온다.

14. ‘회개’도 주님 사랑으로 해야 쉽게 된다.

15. 주님과 주님의 욕이 되는 자가 왜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자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도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16. (주 편) 저마다 마음의 길을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 나 예수가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의 얼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 예수가 대하는 것이 달라진다.
17. (주 편) ‘마음’이라는 얼굴이 있다. 생각에 따라 마음의 표정이 달라진다. 나 예수는 그 마음의 표정을 보고 대해 준다.
18. (주 편) 온전한 사랑의 미소의 얼굴로 나 예수를 대하는 자를 보면 나 예수의 얼굴도 그와 같이 된다.
19. (주 편) 행한 자만 알 수 있다.
20. (주 편) 행한 자들만 가는 길이 따로 있고, 배운 것으로 끝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
21. (주 편) 실제로 사랑하는 자를 날마다 사랑한다.
22.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일일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망에 거하지 않고 생명길로 가도록 우리 육신을 수백 가지로 도우신다. 그것이 늘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것임을 깨달아라.
23. 자기 영혼과 육신이 잘되게 늘 기도해 주는 것, 자기 물음에 대답해 주는 것이 모두 사랑이다.
24. 주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자기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
25.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모두 사랑의 열매로 열리고, 주님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나날이 사랑의 열매가 익어 간다.
26. 주님이 그 모습을 안 보여 주셔도 주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믿고 행하여라. 특별히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 그 모습을 보여 주면, 그같이 못 하는 자들은 주님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소외감을 갖고 더 못 한다. 그러니 자기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대가로 늘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심을 믿어라. 또한 그 대가로 자기 집이 천국에 건설되고 있음을 믿고 행하여라.
27.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하여 행한 것만 주님께 전달된다.

<2012년 4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명을 주면 일에 빠져서 주님이 일로 바뀐다. 일을 할 때 주님과 손을 맞잡고 같이 나르고 묻고 해야 된다. 주님이 같이 하자고 일을 주신 것이다.
2. 남녀가 사랑할 때 같이 해야지, 혼자만 사랑하면 한 사람은 식물인간 격이 되고 시체 격이 된다.
3. 같이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웃고, 같이 심고, 같이 거두기다.
4.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하는 말을 들으시고 심정에 닿아야 말씀하신다.
5. 주님이 온전한 말씀을 하셔도 사상이 온전치 못한 자는 자기 사상대로 말이 나온다. 고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사상으로 인도한다.
6.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풍속에 늘 갇혀 산다.
7. 자신의 무지로 인하여 자기를 자기 주관에 갇혀 살게 한다.

8. 애인의 필수 조건은 '사랑'이다.
9. 주님은 사랑을 보고 일을 맡기신다.
10.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전할 자도 역시 사랑이 조건이다.
11.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과 행위대로 천국의 위치가 결정된다.
12. 천국은 횡적으로 차원의 세계가 나뉘어 있고, 또 종적으로도 차원의 세계가 나뉘어 있다. 똑같이 지구 세상에서 살아도 수만 층으로 차원이 나뉘어 살아가고 있다. 자기 행위대로 나뉘어 살고 있고, 종족대로 나뉘어 살고 있고, 같은 종족이라도 수천 층으로 나뉘어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육의 세계라서 차원이 횡적으로만 나뉘어 있다. 천국은 차원에 따라 거하는 곳이 각각 다른데, 그 차원이 횡적으로도 종적으로도 나뉘어 있다.
13. 천국은 규모가 너무 커서 지구 정도의 크기는 하나의 '군'으로 보면 된다.
14. 천국의 체계가 이미 지상에 그림자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15.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일생 동안 제대로 만나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다. 그래도 그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주님을 믿은 고로 멸망으로 가지 않고 구원에 속한 자가 되어 천국에서 아주 낮은 차원의 세계에 가 있다. 그런 곳은 천국이라도 주님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마치 백성들이 임금과 한 나라에 살아도 임금 보기 어렵듯 그러하다. 그 영이 흑암으로 가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과 아주 먼 자들이다. 이런 영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살며, 주님도 그런 영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신다. 사랑해야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니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저 하나님과 주님을 믿었기에 구원받은 영들에 불과하다.
16.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주님께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이 세상에서도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17.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도 없고 가까이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주님과도 그러하다.
18. 주께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고백이다.
19. 천국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살려면,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더 좋은 부활을 하고 더 좋은 천국의 위치를 소망하며 더 차원을 높여 온전히 살아야 된다.
20. 주님은 영원히 같이 사랑하며 살 자들을 지금 뽑고 계신다.
21. 처음에는 남남이라도 사랑을 하면 한 몸이 되고, 그러다가 생명을 날게 된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주님과 남남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따라 주님은 나의 몸이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 살면 영원한 영의 생명이 결실되어 그 영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살게 된다.
22. (주 편) 이 시대에 나 예수가 보내어 나의 일을 하는 나의 육신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그 영이 천국에 거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23. 이 시대에 주님이 육으로 쓰는 자가 따라오는 자들의 행위를 주께 알린다. 사명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휴거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모든 행위를 놓고 주께 기도한다.
24. (주 편) 나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그 육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그 육이 계시해 준다. 나의 육에 대해서 알려

면 나 예수에게 기도하여라. 모든 것을 모르면 행할 자라도 몰라서 못 한다. 고로 알기 위해 기도하여라.

25. 알아라. 첫째, 배워서 알게 된다. 둘째, 자기가 행하여 알게 된다.

26. ‘주님을 사랑하는 급수’에 의해 천국 구원의 급수가 좌우되고, 천국에 거할 위치의 급수가 좌우된다.

27. 시대 중심자를 따르는 자들이 이 시대와 주님과 보낸 자와 시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변화시켜 시대를 온전히 증거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고 살아야 중심자를 십자가에서 내려 놓게 된다.

28. 따르는 자들이 못 한 짓값으로 중심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29. 중심자는 주님의 욕이 되어 사명을 하고 왔기에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따르는 자들, 곧 구원받을 자들로 인하여 시대 십자가를 지게 된다.

30. 왕이 있는데, 왕비가 이끄는 자들이 왕의 법을 어겼다. 왕이 법을 어긴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 하니, 왕비는 “내가 기르고 만든 자들이니, 내가 대신 감옥에 가서 벌을 받겠습니다.” 했다. 법에 따라 짓값을 치려야 되니, 결국 법을 범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왕비가 감옥에 갔다. 온 민족에게 선포된 법이 있으니 욕에 갈 수밖에 없었다.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말이니, 그 말을 들어주고 그같이 하게 했다. /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주님과 이 시대 주님의 욕이 되는 자가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대신 시대 십자가를 진 것이다. 이 기간에 조건을 못 세우는 자는 구원에서 유실된다.

31.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짓값을 치룬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 때 조건을 다 세워야 된다. 지금이 그때다.

32. 사랑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말하는 대로 마음을 결정하고 행한다. 사랑하는 상대자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체가 응한다.

33. 100m를 가고 싶은 사람은 120m, 150m까지 가는 연습을 해야 100m를 넉넉히 가게 된다.

<2012년 4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는 남녀끼리 욕으로는 육체 사랑을 하고, 마음으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며 사랑을 이룬다. 이와 같이 주님도 주님의 욕신이 되고 그릇이 되어 주님을 모시는 자를 통해서 욕의 재림의 일을 하시며 재림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를 것은 성자의 영이 직접 하시는데, 곧 영 휴거 때 성자의 영이 직접 오셔서 신부로 온전히 준비된 휴거의 영을 맞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2. 주님은 그의 욕신을 통해서 재림의 욕의 일을 이루셨다. 기다린 자들을 욕신 휴거 시키셨다.

3. 주님은 땅에 세운 욕의 사명자를 통해서 땅의 사람들을 욕신 부활 시키셨다. (곧 우리 마음과 행실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고, 그에 따라 우리 영도 사망권에서 나와 점점 신부로 변화되는 부활을 이루었다.) 그로 인하여 시대 욕신 휴거 역사도 이루어진 것이다.

4. 욕적 휴거를 이루어 하늘나라 신부의 형체로 변화된 영을 휴거시키는 영적 휴거 때는 성자의 영이 직접 오셔서 준비된 영들을 휴거시키신다.

5. 신령해야 신령한 영에 대한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

6. 욕의 세계 욕신들에게는 주님의 욕신을 통해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영(성자 본체의 영)이

뜻을 전달해 주니 육은 모른다. 육의 마음과 혼이 신령해야 영의 일을 알게 된다.

7. 육의 휴거를 한 것은 영의 휴거를 위해서다.

8. 주님이 우리의 육을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사랑하여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함이다.

9. 주님이 우리 육을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육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육의 부활과 휴거를 이루게 하시고, 육신의 행위대로 영도 부활시키고 점점 더 좋게 부활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 영 휴거 시키신다.

10. 육만 주님을 사랑하고 끝나는 자는 연애만 몇 년 하다가 만 자와 같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육의 행위로 자기 영을 하늘나라 신부의 영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천사장이 나팔 부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성자 주님을 맞아야 결혼까지 한 자다. 연애는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다.

11. 육이 사랑하면 영이 느끼고 안다. 영이 사랑하면 육이 느끼고 안다.

12. 주님이 직접 사랑해 주셔도 영체가 육체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서 그 사랑을 받은 육은 못 느낀다. 고로 주님은 절대 자기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 행하신다.

13.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였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 사명자의 육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해 준다. 그리고 사명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랑을 주신다고 말한다.

14. 육의 세상은 육의 사랑, 영에게는 영의 사랑이다.

15. 주님은 먼저 육으로 사랑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영으로 사랑을 이루신다.

16. 온전한 회개를 해야 온전한 실체 사랑을 이룬다.

17. 신부는 깨끗해야 된다. 육도 마음도 영도 청결·깨끗·순결이다.

18. 신부가 병들고 더러우면 그와 일체 되는 신랑에게 더러움과 병이 전염된다.

19. 목욕탕에서는 때를 미는 것이 마음도 행실도 쉽다. 목욕탕에서 때를 밀지 않는 것이 마음도 행실도 어렵다.

20. 회개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21. 한 달, 두 달이 넘도록 머리 감지 말고 샤워를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차라리 매일 씻는 것이 쉽다.

22. 목욕탕은 때를 밀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듯, 섭리사는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다.

23. 시대 말씀 들어야 시대 죄와 자기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고 회개한다.

24.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한다. 육으로서 그를 통해 말해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 주님은 시대 보낸 자의 그 육을 통해 말씀하신다.

25. 주님은 주님의 육을 통해 말씀하신다. 계시자에게 말씀을 주셔도 주님의 육이 되는 자를 통해 다시 확인하게 하신다. 주님은 그 육을 통해 행하시니, 주님의 육과 일체 된 자들에게 계시를 주신다.

26. 사탄과 인사탄이 하는 일은 모두 주님과 의 관계를 끊으려 하는 일이다. 주님이 보내신 시대 사명자를 통해 욕 휴거를 시키고 영 휴거가 되도록 온전히 준비시키니, 주님과 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또한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하니, 말씀을 못 듣게 악평하고 거짓말함으로 끊어 내려 한다.

<2012년 4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상형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기 수준대로 선택한다. 고로 모순이 온다.
2.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시대에 보낸 자가 그 시대의 진실된 이상형이다. 그를 선택하고 자신의 이상형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
3. 주님이 욕으로 쓰는 자는 주님께 정말 필요한 욕이니, 그를 주님 같이 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을 절대 사랑으로 대해야 천국에 간다.
4. 재림시대에 성자는 욕체로 안 오신다. 초림 때 예수의 욕신을 쓰고 오셨듯이, 이 시대에도 합당한 자의 욕신을 쓰고 오신다. 그 욕신은 성자가 오셨는지 확실히 안다. 고로 성자를 두려워함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세상에 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준다.
5.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도 열린다. '땅에서 연다'라는 말은 보낸 자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 시대에 주님이 보낸 자가 주님께 가는 '말씀의 문'이며 '구원의 문'이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신다.
6.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가 그 시대 이상형이다.
7. 남녀 모두 이상형을 찾아서 사랑하다가 결혼한다. 같이 살다가도 이상형이 아니면 헤어진다.
8. 세상의 아무것도 안 보고 주님께 안겨 주님만 사랑하는 자라야 주님은 인정하시고 사랑하신다.
9. 누구나 하나님의 적인 사탄과 일체 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신다.
10. (주 편) 성자 나 예수와 나의 욕과 일체 되지 못한 자는 농부가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나 예수가 섭리사 주관권에서 쫓아냈다.
11.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이루는데 불신하면 그 욕과 영이 사탄과 일체 되어 사망으로 가고, 그 욕신이 죽으면 그 영이 흑암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12. 이상형은 주님이시다. 주님과 일체 되어 매일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13. 주님의 욕신을 통해 주를 배워야 안다.
14. 독학이 아니다. 주님께 배워라. 주님께 배우려면 그 욕으로 보낸 자의 말을 들어 보아라. 주님은 그 욕에게 수만 가지 말씀을 해 놓으셨다.
15. 배우지 않았는데도 아는 자는 상식만 알고 사는 자다.
16. 하늘의 비밀은 배워도 사명자만 알게 허락하신다.
17. 따르는 제자로서 배우지 않고 따르면, 차에 기름을 안 넣고 따르는 것 같아서 결국 가다가 만다.

18. 오늘은 배우고, 내일은 가르치고, 모레는 생명을 구원하여라.

19. (삽화 보여 주면서)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주님이 육으로 보낸 자는 ‘말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전해 주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구원의 재창조가 되어야 한다.

2.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짐승으로 태어나듯이 쉽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되면 인간의 생명은 태어난다. 그래서 현재 지구 세상에는 70억 명의 사람들이나 살고 있다.

3. 혼해 터진 것이 인생들이다.

4. 인간을 ‘재창조’하기가 가장 어렵다. 하나님도 그 단계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신다.

5.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다음에 재창조하지 않으면, 그 생명은 인간 이하로 존재하는 영으로 끝난다.

6. 인간을 재창조하여 구원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고로 창조되어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많지만, 재창조되어 구원받는 수가 적다.

7. 현재 지구 세상에 사는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온전히 재창조하여 구원받고 죽는 사람의 수는 아주 극소수다.

8. ‘재창조’란 사람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육신의 삶을 통해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쉬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책임분담을 해야 하고,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책임을 해야 된다. 인간이 해야 된다. 고로 재창조되기가 어렵다.

9.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혼을 구원해 놓고 죽는 인생은 세상에서 지구 전체를 얻은 것같이 큰 것을 얻고 가는 자다.

10.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는 지구 전체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자다.

11.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이 죽은 후에 지구 정도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

12. (왜?) 지구보다 구원의 가치가 더 크고 높기 때문이다.

13. 세상에서 지구덩이 가치만큼의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산들을 천국에는 못 가지고 간다. 천국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천국에는 오직 구원받은 영만 간다.

14. 인간은 세상에서 ‘몸(육)’으로 산다.

15. 영계에서는 ‘영’으로 산다.

16. 육계에서는 몸(육)이 갓출 것을 갖추고 살고, 영계에서는 영이 갓출 것을 갖추고 산다. 영계에서는 오직 ‘영’이다.

17. 육계에서는 육이 그리 귀하고, 영계에서는 영이 그리 귀하다.

18. 인간은 세상에서 육체덩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처한 환경을 거쳐 가면서 사용하며 산다. 고로 인간은 몸(육)으로 산다.

19.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육’은 살았을 때 세상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육이 죽으면 ‘영’은 영계에서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

20. 영계를 보아라. 육으로 보아도 모르니 내게 물어봐라.

21. 육이 죽으면 죄의 형벌을 줄 수가 없다. 고로 그 영이 죄의 형벌을 받는다.

22.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믿고 성자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 육신을 통해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라. 이것이 재창조다.

23.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그 육과 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재창조’다.

24.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자기 것이 되게 함으로 사랑의 재창조를 한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펴신다.

25. 어떤 산지기가 산에 나무들을 키웠다. 키운 나무들 중에서 몇 나무를 뽑아 거기에 좋은 나무를 접붙여 열매를 열게 한 후에 자기 집 정원에 심는 것이 재창조와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키우신다. 그리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어 접붙이게 한 후 영을 구원하여 천국에 오게 하는 것이 재창조다.)

26.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이 ‘1차 창조’라면, 월명동을 하나님의 자연성전으로 만든 후가 ‘2차 창조, 곧 재창조’다. /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도 월명동을 개발하듯이 그 육신의 행위를 통해 영혼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 재창조해야 된다.

27. 1차 인간 창조는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재창조를 안 하시면 인간의 육은 지상에서 흙으로 끝나고, 그 영도 사망의 영으로 끝난다.

<2012년 4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 받는 괴로운 소리를 육을 통해 노래로도 나타내고, 지옥에서 고통 받는 괴로운 심정을 육을 통해 행실로도 나타낸다. 그 지겨운 소리를 듣기 싫어 온종일 귀를 막고 살았고, 잘 때도 귀를 막았다. (지겨운 구내방송 노래들이다. 모두 지옥 고통의 결과체다.)

2. 자기 영이 지옥의 고통을 받으니 그 고통이 마음을 통해 육으로 전달되어 육도 괴롭고 마음도 괴로운데, 사람은 모르고 산다.

3. 지옥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가는 곳이 아니다. 육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도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자를 진실로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 쪽에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영향을 받아 마음도 고통을 받고 육도 고통을 받는다.

4. 너를 창조하시고 네가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것의 반만 사랑했어도 네 영이 지옥에는 안 갔다.

5.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각각 100% 사랑해 주면서 도와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10%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랑의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

6. 구원받지 못한 영이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영계 대기소에 거한다. 거기서 지상에서 육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음으로 고통 받을 때와 비슷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다 거기서도 자기 영을 구원시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운명이 기울어진다.

7.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아니한다.

8. 제대로 알고 행해야 수고해도 이루어진다.

9. 모르고 100년 믿고 행하는 것보다 알고 1년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10. '재창조'란,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재창조를 안 하면 인간의 육이 결국 세상에 흠으로 끝나듯이, 그 영은 흑암 지옥에서 끝난다.

11. 인간을 재창조하지 않으면 짓다 만 집과 같고, 열다 만 과일나무 열매 같다.

12. 인간의 육 창조는 영의 재창조를 위해서다.

13. 재창조는 '생명 구원'이다.

14.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재창조시킨 자는 참으로 귀한 자로서 하나님도 귀하게 보신다. 그 육과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다.

15. 재창조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역사요, 신앙 역사요, 구원역사다.

16. 재창조 역사는 1차 - 2차 - 3차로 차원을 높여 구약 - 신약 - 성약으로 완성하였다.

17. 재창조의 마지막 기간은 성약역사 기간이다.

18. 1000년 성약역사는 마지막 재창조 기간이다. 구원역사의 완성 기간이다.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4월 11일, 3월 31일 잠언

1. 육체적 싸움은 약하다. 정신적 싸움을 하여라. 정신적 싸움이란, 이념과 사상의 싸움이다.

2. 정신적으로 이념과 사상의 싸움을 하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싸우라는 말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이시다.

3. 음식이 있는데 맛있는 냄새만 맡고 실제로 못 먹으면, 위액만 나와서 속만 쓰리게 된다.

4. 이 시대에 신랑으로 재림하시는 성자가 주는 말씀을 못 들으면 심정만 상하게 된다.

5. 성자가 재림하셨으니 늘 하던 대로만 주님을 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일을 하여라. 이는 곧 이 시대에 성자가 그의 육으로 쓰는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일이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말씀하며 역사를 펴니, 성자의 육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 주님도 제대로 모른다. 아는 만큼 구원이다. 알고 행하는 만큼 영의 형체가 하늘나라 신부의 형체로 변화된다.

6. 해발 2000m를 올라가도 어지럽지 않은데, 땅에서 높이가 10m 되는 나무에만 올라가도 왜 어지럽겠느냐. 안전하면 어지럽지 않고, 위험하면 어지러운 것이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안전하면 걱정 근심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삶이 불안하면 편안한 곳에 있어도 걱정 근심이다.

7. 전쟁 중에서도 바위 굴속에 들어가 있으면 포탄이 날아와도 걱정이 없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평안한 삶 속에서도 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 걱정된다.
8. 환난과 핍박이 닥쳐도 예비되어 있으면 걱정이 없다.
9. 누가 사명을 주느냐에 따라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하는 자의 입장과 위치가 달라진다.
10. 누가 사명자에게 사명을 맡겼느냐, 누가 사명자에게 일을 시켰느냐, 누가 사명자에게 임했느냐가 중요하다.
11. (왜 누가 사명자에게 일을 맡기고 임했느냐가 중요한가?) 사명을 준 자가 사명자에게 임하여 행하니, 사명자는 임한 자의 권한으로 사명을 대행하기 때문이다.
12. 이 시대에는 성자가 재림하여 사명자에게 일을 맡기고 그에게 임하여 시대 새 역사를 펴 나간다.
13. 기도하는 시간이 정신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심령에도 좋은 것은 모든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자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기 때문이다.
14. 기도하는 시간은 인간과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과 대화하니 최고 편하다. 이때 자기 마음에 대화의 대상을 누구로 두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주님이다.

<2012년 4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3월 31일 잠언

1. 찌러기 인생은 부딪히면 시간 뺏겨 무서우니 그를 피해 돌아서 간다. * 찌러기 : 흔히 '찌룩소'라고 부른다. 성질이 몹시 사나운 황소로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에 강한 사람을 일컬어 말한다.
2. 연륜이 있고 경험도 있으나 자기 주관에 세고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자는 주님께 쓰이지 못한다. 고로 연륜이 없고 경험이 없어도 자기 주관에 없는 어린 자들을 가르쳐서 쓴다.
3. 오래된 자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여 의논할 자와 의논하지도 않고, 가까이할 자와 가까이하지도 않고, 나이가 먹었다며 목도 허리도 굳어 있다.
4. 소나기가 내리면 맞지 말고 피해야 되고, 홍수가 나면 거기서 떠나 피해야 된다.
5. 지금은 홍수 같은 환난이다. 물에 들어가 수영해서 피할 때가 아니다. 주의 성산에 높이 올라가야 된다.
6. (주 편)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나 성자 예수가 너와 같이하련다.
7. (주 편) 인맥도 없고 백도 없느냐. 내게 구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역사하리라.
8. (주 편) 나 성자 예수는 마지막 준비를 위해 떠나도 '말씀은 양식'이니, 나의 육을 통해 말씀은 계속 준다. 이제 너희 선생과 더욱 하나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 성자 예수와 하나 되어라.
9. (주 편) TV를 통해서 방송을 보듯이, 선생을 통해 나 성자 예수를 느끼고 보아라.
10. (주 편) 남녀의 사랑의 행위로 생명이 탄생되었듯이, 나 성자 예수가 섭리역사 기간 동안 내 육의 사명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들어야 너희 육이 휴거되고, 너희 영이 휴거의 영으로 탄생된다.
11. (주 편) 나의 재림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도 보낸 자의 조건이 없으면 나를 못 맞는다.

12. (주 편)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나는 전능한 영이니, 나의 육을 통해서 나의 말을 주기 때문이다.

13. 섭리사에 왔다고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섭리사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다. 펄펄 끓어야 돌은 빠져나가고 쇠가 녹아서 뭉쳐 철이 되어 쓰여진다. 섭리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녹아지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여 녹아져라. 그래야 휴거된다.

14. 섭리사에 왔어도 여전히 이방 신앙을 하고 기성 신앙을 하면 새 말씀은 들었어도 육과 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그 위치다.

15. 저마다 옛집을 헐고 새 집을 짓듯이, 옛 신앙은 허물고 새 신앙을 세워라.

16.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100% 변화되어야 형제도 변화시킬 수 있다.

17. 생명의 말씀을 이용하여 형제를 책하는 데 쓰지 말아라.

18. 보다 앞에 가는 자는 뒤에 오는 자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통해서 전해져야 된다.

19. 부모가 아이를 잃고 찾는 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여라.

20. 애인을 잃고 찾는 자의 심정으로 급히 생명들을 찾아라.

21. 자기 아이를 잃은 자도, 애인을 잃은 자도 두려움으로 찾는 것이다. 이 같은 정신으로 생명을 찾아라. 그래야 찾는다.

22. 지금은 목자가 양을 찾는 신약 때가 아니다.

23. 지금은 사랑하는 애인을 잃고 애타게 찾는 심정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찾는 성약역사의 때다.

<2012년 4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마음은 백지장 한 장 가지고도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다.

2. 변화무쌍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못 간다. 오직 영만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나마 온전히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 영만 하늘나라에 간다.

3. 인간의 마음은 모래 한 알 가지고도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기 앞에 자기만 한 자가 왔다 갔다 하니, 안 흔들리겠느냐. 절대 하나님과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한다.

4. 창조주는 왜 이리도 인간의 마음을 약하게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마음은 강하게 창조하셨건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체 되지 못했기에 약한 것이다.

5. 인간의 마음은 왜 이리도 약할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안 키우기 때문이다.

6. 자기 마음을 강하게 키우면, 코끼리가 앞에 간다 해도 안 흔들린다.

7. 자기 마음과 자기 주관을 비우지 않고 하는 기도는 자기 기도다.

8. 앞날을 보고 버려라. (각자 버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앞날을 보고 버릴 것을 버려라.)
9. 지금은 마음이 뜨거워도 앞날에는 식어서 문제이니, 지금 자기가 버릴 것을 완전히 버려라.
10. 지금은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마음이 식고 영혼이 죽으면 문제를 일으키니, 그 전에 미리 알고 버려라.
11. 자기 범죄가 자기를 죽인다.
12. 주님과 시대 사명자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 자기가 자기 책임을 못 하면 죽는다.
13. 그 욕이 배신하면 그 영도 배신한다. 고로 충격이 크다.
14. 독수리가 태풍 주관권을 벗어나려고 하늘 높이 난다. 너희도 차원을 높여서 날면, 시험·핍박·세상 생각·세상 유혹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된다.
15. 지금 무엇을 쳐다보느냐. 쳐다보는 대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주관을 받는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하는 대로 주관을 받는다.
16. 주님을 잡아야 휴거된다. 성자 주님은 전능하신 영이시라 안 보인다. 그의 욕이 되는 자는 보이니 그를 잡아라. 그러면 성자 주님도 잡게 된다.
17. 성자 예수님과 그가 보낸 중심자는 마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따로 있지만 속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한 틀로 보듯이 하나로 통한다. 또한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따로 있지만 속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한 틀로 듣듯이 하나로 통한다. 오른쪽 콧구멍과 왼쪽 콧구멍이 따로 있지만 속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한 틀로 기능을 하듯이 하나로 통한다.
18. 하나님과 주님이 그 시대에 쓰시는 사명자는 변질되지 않는 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각각 있어도 속에서는 하나로 일체 되어 통하듯이 주님과 일체 되어 통한다. 한쪽 눈은 멀리 보고, 한쪽 눈은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듯이 자세히 본다.
19. 신랑 되신 성자 예수님과 그의 신부 된 자는 몸이 각각이다. 그러나 실상 내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 항상 수수(授受) 결합 일체다.
20.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자기를 중시하다가 끝났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말은 들었으나, 근본적으로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확실히 몰랐다. 확실히 알았다면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모시고 섬기고 증거했을 것이다.
21. 모든 사람들의 속은 그 행위를 보고 안다.

<2012년 4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입만 놀려 신앙생활을 한 자들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같이 되어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나무를 베어 버린다.
2. 형식자들과 외식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과 외식이다.
3. 하나님과 주님이 보내신 자가 하늘의 사랑으로 대했어도 자기의 사랑을 세상을 위해서만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보낸 자를 그렇게도 가치 없이 대하더니, 그 영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4. 때가 되었기에 주님은 진정 사랑하는 자만 데리고 가신다. 미련도 없다.
5. 썩는 인생 10000명보다 온전한 인생 1명이 낫다.
6. 고칠 수 없는 인생 10000명보다 온전한 인생 1명이 낫다.
7. 주님을 불신하고 그가 보낸 자를 불신하여 가지가지 쓰린 고통을 준 악한 자들의 영은 그 육이 살아 있을 때부터 흑암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은 영원하다. 세세토록 끝이 없다. 이는 전능자가 정하신 영원한 법이다.
8. 사탄은 순간 들어온다. 순간이 무섭다.
9. (고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순간순간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여라.
10. 재림의 날을 가장 기다린 자는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성자 예수님이시다.
11.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기 당세에만 기다렸지만, 다시 오시는 성자 예수님은 6000년간을 기다리셨다. 성자는 신약 전 구약 때부터 삼위일체의 존재자로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다.
12. 과정 중에서도 선과 악을 쪼개면서 오지만, 결과에서는 선과 악을 완전히 쪼갬다. 농부가 농사를 다 짓고 타작할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완전히 구분하고 쪼갬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자랐지만, 결국 쪼개서 나눈다. 마지막 구원역사인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완전히 쪼개신다.
13. 그동안 섭리역사 속에 잠재해 있던 악한 자들도 스스로 쪼개져 나가도록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14. 마지막으로 온전해져라.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다.
15. 여기서 쪼개지는 대로 영원히 결정된다.
16. 성자의 재림 때 세운 성자의 육이 되는 자는 과거 어떤 선지자나 중심인물에 비교할 수 없이 중한 사명을 가진 자다. 과거 역사는 모두 재림역사를 기다렸다. 과거 구원역사의 선지자나 중심인물들은 과정 중의 사명자요, 재림 때 사명자는 성자 예수님과 일체 되어 마지막으로 결론짓고 행하는 사명자다.

<2012년 4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3월 25일

1. 네 갈 길을 못 가면서 사탄과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 사탄과 악인을 멸하는 날만 생각하지 말고, 어서 네 갈 길을 가라.
3. 사탄과 악인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다. 고로 그 날을 생각하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는 것이 네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4. 네 갈 길 못 가면서 속 시원하게 사탄과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네게 무슨 유익이냐.
5. 사탄도 악인도 심판의 날이 예정되어 있어 하나님이 멸하신다.
6. 네 갈 길 다 가고, 나중에 악의 멸망은 말로 전해 들어라.
7. 저마다 주 뜻대로 살면서 갈 길을 가는 것이 사탄과 악인을 멸하는 길이다.

8. 저마다 자기가 차원 높여서 목적지에 오르면, 앞에서 위에서 괴롭히던 사탄과 악인은 어느새 밑의 음부에 가 있다.
9. '너'라는 두레박이 올라와야 '사탄'이라는 두레박이 내려간다.
10. 어떤 사람이 자기를 평생 괴롭히던 자가 어느 한 지점에서 심판받고 죽는다고 하니, 자기 갈 길을 안 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그가 처형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 자기가 그 날 일평생에 꼭 가야 될 곳을 못 갔다. 그러니 무슨 유익이나. 심판받는 자는 누가 지켜보든 안 지켜보든 어차피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다가 평생 자기 갈 길을 못 가면 누구만 손해냐. 너희도 이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자기 갈 길을 다 가고, 후에 말로 들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되면 사탄도 악인도 영원히 기억도 안 나게 심판하여 없애신다. 믿어라!
11. 주님이 명하신 자기 갈 길을 가라.
12. 하나님은 이 시대에 뜻하신 대로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사탄과 악인을 멸하신다.
13. 롯은 하나님이 명하신 소알 성으로 가면서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 땅을 안 쳐다보고, 오직 살기 위해 자기 갈 길을 갔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살기 위해 자기 갈 길만 가라.
14. 롯의 아내는 소돔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뒤돌아 쳐다보다가 제 갈 길 못 가고 죽었다.
15.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할지 신경 쓰면 거기에 시간을 뺏겨서 할 일을 못 하니, 오직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 자기 살 길을 갔다.
16. 제 갈 길 다 간 후에 하나님과 주님께 들으면 되고, 소식을 전해 들으면 된다.
17.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신광야로 갈 때, 계속해서 뒤따라오며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멸하는 것을 쳐다보다가는 갈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계속 모세를 따라 앞으로 질주만 했다.
18.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인을 괴롭힌 자가 심판을 받아도 의인은 못 보게 하신다. 의인도 제 갈 길을 가야 살기 때문이다.
19. 사탄과 악인들을 처형할 때는 다른 자들은 못 보게 되어 있다. 그들을 처형하는 하늘의 사자들만 보는 것이다.
20. (주 편) 하나님의 새 역사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아.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신경 쓰면서 시간 뺏기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갈 길만 가라.
21. (주 편) 의인들이 제 갈 길을 간 다음에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들을 시켜서 사탄과 악인들을 없애신다.
22. (주 편) 너는 기도만 하고 네 갈 길로 떠나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남아서 보려 하지 말아라.
23. (주 편) 네가 떠나야 심판한다.
24. (주 편) 너 떠나면 너를 괴롭힌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서 떠나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 네가 떠나야 후에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25. (주 편) 사탄과 악인의 심판을 너에게 안 보여 주려 함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보면 네 갈 길 못 가게 되고, 그 지역이 심판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묶여 있기에 네가 더 갈 길을 못 가기 때문이다.
26. (주 편) 사탄과 악인의 심판을 너에게 안 보여 주려 함이 아니라, 사탄과 악인들을 심판하면 그 지역은 초상집이

되어 그들이 운영하는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어 내가 못 움직이기 때문이다.

27. 저마다 자기 갈 길, 곧 주님이 정한 곳으로 가서 멀리서 쳐다보고, 뉴스로 소식을 들어라. 끔찍하고 처참하리라. 오히려 원수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을 것이다.

28. 의인들이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행하신다. 죄악이 관영했기에 그냥 놔둬도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없을 때는 미련 없이 심판하신다.

29.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30.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심판하실 때는 아주 세밀히 보시고 심판하신다.

31. 하나님의 생명을 잡아먹을 때, 즉 하나님의 생명을 사냥할 때 심판하신다. 또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들이 썩어 들어가게 할 때 심판하신다.

32. 심판하기 전에 먼저 성삼위께서 시대의 사명자로 뽑아 그 시대에 자신의 육으로 쓰는 자와 함께 모든 상황을 보시고, 세상을 대표한 그 육신, 곧 시대의 중심자와 의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놓고도 회개하지 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같은 자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며 중심자에게 인식시켜 주신다. 시대 중심자가 이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먼저 그를 그곳에서 나가게 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

33. 하나님은 심판 전에 정녕코 심판한다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신다. 확실히 알리고 심판하신다. 그 징조는 중심자가 확실히 깨닫는다. 나머지 사람들과 심판받는 사람들도 그 징조를 보나, 깨닫지 못한다.

34. 심판할 것을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어도 의인들을 모두 꺼내 놓고 심판하시기에 오랜 후에 심판하신다.

35. 자기에게 해를 주고 자기 혈통을 죽인 자는 사형을 선고 받는다. 그러나 사형 집행일에는 오직 처형하는 자만 보고, 해를 받은 자에게는 처형했다고 전해 주기만 한다. 하나님의 심판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사자들 중에서 사탄과 악인의 처형에 관여된 심판의 사명을 받은 자만 심판의 모습을 본다.

36. (주 편) 너는 부지런히 네 갈 길이나 가라. 그리고 역울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여라.

<2012년 4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3월 31일

1. 사랑만이 무한하다.

2. 참된 사랑은 지치지 않고 연속이다.

3. 주님과 사랑의 불을 붙여야 된다.

4. 주님과 사랑의 불을 붙이고, 모든 것을 사랑을 중심해서 해야 된다.

5. 마음이 '칼'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한다.

6. 마음으로 자를 것을 잘라내라. 마음을 다스려라.

7. 마음으로 해도 영향을 받는다.

8. 자기 마음으로 산 뱀을 입에 넣고 깨물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느낌이 어떠한가? 진저리가 쳐질 것이다. 이같이 마음으로 해도 자신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9. 눈으로만 봐도 뇌가 자극을 받아서 쇼크를 받게 된다.

10.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것이나, 사고 나서 생명들이 몰사하는 것을 보아라. 마음에 쇼크를 받지 않느냐. (고로 눈으로만 봐도 뇌가 자극을 받아 쇼크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11. 좋은 것을 보아라. 좋은 것을 생각하여라.

12. 나쁜 것 보고 생각하면 뇌는 그 나쁜 체질이 되어 버리게 된다.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생방송

1.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 휴거 구원 역사'가 시작되어 이미 30년 이상 진행되었는데도 기다렸던 자들도 모른다.

2. 기다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에 동참한 자들이 제대로 확실히 알고 전해 주지 않으면 그 후손들은 당세에 태어나 살지 않아서 모른다.

3. 하나님의 역사를 땅에서 시작하면 그 당세에 사는 자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따른 자들이 알려 줘야 후대에도 계속 역사를 펴 나간다.

4. 당세 때 불신한 자들은 자신들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며 100년, 1000년, 2000년 동안 기다리기만 한다.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도 당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유대 종교인들은 불신했다. 그로 인하여 그 후손들도 지금까지 믿지 않고 100년, 1000년, 2000년이 넘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5. 성자의 재림 역사도 이 역사에 동참한 우리들이 듣고 따라 우리 육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성약 역사를 맞고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후손들에게 계속 이 복음과 역사를 전해 주면서 가야 된다. 우리의 몸에서 난 신앙의 후손들과, 자기가 낳고 기른 자녀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히 전하여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되어 성자의 재림을 맞고 역사에 동참하게 해야 된다.

6.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는데, 당세에 기다리던 자들이 못 받아들여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못 받아들인다. 위에서 선조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밑에서 그 후손들이 받아들인다.

7. 하나님의 기업은 신앙의 기업으로서 최고로 좋고 높은 아벨의 기업이다.

8. 어느 시대든지 두 종교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흘러간다. 한 종교는 신앙이 깨어 있고 살아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선조들부터 그 역사를 받아들였고, 다른 한 종교는 신앙이 잠자고 있고 죽어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선조들부터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 이 시대도 같은 성자를 믿는데도 깨어 있는 자들은 성자의 지상 재림을 받아들여 주와 같이 역사를 펴고, 못 받아들인 자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10. 하나님의 역사는 들어가서 참으로 동참하고 온전히 행하면서 가야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되고, 동참하며 가다가도 빛나가지 않는다.

11. 하나님과 주님은 역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또한 역사에 참여했어도 주 뜻대로 행할 때만 도우신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니 역사를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도 주님도 역사하지 않으시니 더욱 역사를 불신하게 된다.

12. 자기가 구원받고 지옥을 면하는 하나님의 대역사에 와서 열심히 하다가 서운한 일이 있거나 손해를 봤다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10년이나 기다린 잔칫집에 왔다가 누가 자기 발을 밟았다고 화난다고 돌아가는 격이다.

13. 잔칫집에서 누가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10년이나 기다린 잔칫집에서 나가는 자들은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그같이 얕잡하게 대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면서 사는 자들이다.

14.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일 난다. 아주 큰일 난다.” 하셨다.

15.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다. “성경을 보아라.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면서 산 자들은 모두 큰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천사장 루시엘도,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노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혼인 문란하며 살았던 자들도, 노아의 아들 함도, 소돔 땅의 사람들도, 롯의 아내도, 신광야에서 모세를 따르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도, 가롯 유다도, 하만도 모두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면서 살다가 결국 큰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 시대도 그러하다. 자기 기분에 마음 출렁이며 산 자들은 다 섭리사에서 쫓겨나 갖은 고통을 당했다. 또 자기 기분에 마음 출렁이며 산 이 시대 개인, 민족, 세계가 모두 큰일을 당했다.” 하셨다.

16. 구원받을 자, 하나님과 성자를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는 주와 마음과 생각이 일체 되어 주 뜻대로 살아야 된다.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3월 31일, 혹은 4월 8일

1. 사랑하는 자가 제일 강하다. 사탄도 이기고 악인도 이긴다.
2.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쳐다보고 가면 된다.
3. 환난과 어려움 모두 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만 좇으면 된다.
4.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빠져 그것만 생각하다가 문제에 갇혀 버린다.
5. 말세가 어떻게 될까 그것만 걱정하다가 제 갈 길이 생명길인데 가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6. 주님을 사랑하며 좇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좇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넘어짐이 된다.
7.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과일(성적 지체)을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과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성적 지체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타락해 놓고 왜 하나님이 성적 지체를 만드셨냐며 이유를 단다. 지체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지체 위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지체를 불의하게 썼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다.
9. 성적 지체를 뜻하는 과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창조하셨다. 과일뿐 아니라 손도, 발도, 눈도, 귀도, 입도, 온몸의 각 지체 모두 사람이 의를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불순종함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타락이다.
10.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악하고 불의하게 사용하면 죄다.

11. 과일을 보관할 때 온도를 안 맞추고 보관하면 썩는다. 인간의 각 지체도 절대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게 사용하지 않으면 썩는다. 썩은 과일은 복직되지 않아도 인간은 '회개'로 복직된다. 그러나 회개하더라도 '탕감'이라는 계곡을 거쳐야 된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회개와 형벌, 곧 탕감'으로 재생된다.

12. 하나님께서 성적 지체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함이다. 하나님의 뜻 길을 가면서 사용하여 누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으로 사용하여 누리는 것과는 아예 딴 세계다.

13. 과수원의 과일을 먹으려면 과수원 주인과 의논하고 주인의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법도 어기지 않고, 과수원에서 과일도 먹고, 주인도 사귀니 좋다. 그런데 주인과 의논 않고 도둑질하여 먹으니 죄가 되어 찢값을 받고, 먹은 것을 후회하고, 먹었어도 살이 되지 않고, 과일이 저주스럽고, 왜 과일 농사를 지어 과일을 만들었나 원망만 하게 된다.

14. 지은 것이 선하매 선하게 써라.

15.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이성 사랑의 죄를 짓고 사는 자가 30억도 넘는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이가 너무 어린 자는 이성 사랑이 뭔지 몰라서 이성죄를 못 짓고, 나이가 너무 든 자는 때가 지나 이성죄를 못 짓고, 정말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아니 자기를 다스리며 이성죄를 안 짓는다. 그러나 이렇게 이성죄에서 벗어나 사는 자는 극소수이고, 거의 모두 이성죄를 지으며 삶을 산다.” 하셨다.

<2012년 4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는 자들과 없다는 자들 두 종류로 살아간다. 신은 자기를 인정해야 나타난다.

2. 사람끼리도 자기를 인정해야 자기를 나타내듯이, 신도 자기를 인정해야 나타내신다. 사람이 신을 인정 안 하는데 자기보다 수천만 배 수준이 낮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겠느냐. 신은 자존심이 없는 줄 아느냐.

3. 어느 한 곳에 각종 괴상망측한 죄를 지은 자들이 모여 찢값을 받고 있는 장소가 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억울하게 온 사람도 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그곳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좋은 사람들도 있고,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살던 자들도 있어.” 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말하기를 “그곳에는 다 죄인들만 있어. 쓸 만한 사람 하나 없어.” 했다. 큰 자는 자기를 인정하고 큰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서 그가 인정하는 대로 말한다. 나 역시 절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자들 중에서 한 명에게만 말해 주며 나타냈다. 하나님도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만 조금씩 나타나 역사하신다.

4.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기본으로 주신 '신성'이 있다. 신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사상과 생각으로 이 신성을 없애버린 자다.

5.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차원 높여서 살면, 사탄은 그를 꺾어 왜 육적으로 살지 않냐고 한다. 즉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성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뜻이라 한다.

6. 사탄은 수천 가지 이론을 펴고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좋고 편하게 유혹한다. 사탄이 좋게 해 주는 것은 결국 멸망시키는 일이다.

7. 보이는 사탄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탄이다.

8. 세상을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들이 밀려온다. 문제는 답이 아니다. 그러니 답만 보고 가라. 주님이 답이다.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와도 성자 주님이 답이다.

9. 문제를 쳐다볼 것 없다. 답만 향해서 가라. 정확한 목적을 두고 가는 것이 답이다.

10. 시대 사명자가 답이다. 그만 보고 가라.

11. 확신은 실체를 이룬다.

12.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의 문이 열려 실제로 주님을 만나 보게 된다.

13. 사람들은 자기 진로가 무엇인지,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지, 확인받고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도 선생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해 준다. 왜? 자기가 어디까지 견디면서 하는지에 따라 자기 진로와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에 말을 못 해 준다.

14. 절대 주님을 중심으로 행한다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그 답이 틀릴 수도 있다. 왜? 자기가 가다가 변하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어도 그 답이 틀리게 되는 것이다.

15. 자기 행위로 인하여 자기 운명, 자기 진로의 길이 좌우된다.

16. 절대 끝까지 주님과 일체 되어서 가야 된다. 끝까지다!

17. 인간은 하다가도 말고 가다가도 변하니 앞날을 예상하지 못한다.

18. 하나님도 심판을 정하셨어도 변화무쌍하다. 인간이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19. 주님을 절대 믿고 절대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과 휴거가 예정되어 있다.

20. 하나님도 주님도 인간을 절대 100% 사랑하신다. 이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인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요동이 있을 뿐이다.

21. 얼마든지 할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고 놀다가 일이 밀려서 인생 자포자기 하게 된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3월 31일

1. 마음이 실체다. 생각이 실체다.

2. 마음과 생각이 한 것이 실제 행한 것이다.

3. 가령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면, 실제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된다.

4.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 주면, 실제로 사랑해 준 자가 되어 그 의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도 그 삶이 빛나고 하늘나라에서도 그 영이 빛난다.

5.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적인 생각을 하면, 실제 살인의 행위가 되어 하나님께 살인자 취급을 받는다.

6. 평소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되어 영이 더욱 빛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7.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 욕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8. 항상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여라. 주님 향한 마음 변치 말아라.

9. 성자 주님을 애인같이 여기고 늘 옆에 모시고 실제로 이야기하며 살아라. 자기가 신령해도 전능하신 성자 본체는

못 본다.

10. 눈이 좋은 사람이라도 말소리는 눈으로 안 보이고 귀로만 들린다. 이와 같이 자기가 신령해도 성자 주님은 마음과 생각으로 느껴 보게 된다.

11. 성자 주님은 지구에 계셔도 천국에 계셔도 자기가 찾아야 통해진다.

12. 영은 영파로 통하고, 육은 육파로 통한다.

13. 성자 본체가 10000명 앞에 서 계셔도 눈으로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영안이 뜬 사람이나 보는데, 그것도 상징체로 본다.

14. 성자 본체는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다.

15. (상징체로 보여 주셔도) 영을 보려면 영적으로 봐야 된다.

16.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감당하면 상징체로 보여 주신다.

17. 성자가 상징적으로 자신을 보여 주고 싶어 하셔도 보고자 하는 자의 마음·정신·생각의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8. 급해도 차원대로 보여 주는 것이 공의다. 고로 반드시 보고자 하는 자의 마음·정신·생각의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보여 주셔도 본체가 아닌, 상징체로 보여 주신다.)

19.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서 대화하셔도 그 모습은 안 보인다.

20. 신령하여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면 된다.

<2012년 5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관심이다. 중심의 마음이다.

2. 사랑하는 자는 못 건디고 찾는다.

3. 사랑하는 자는 끊임없이 사모한다.

4. 사랑하는 자는 행한다.

5. 거짓으로는 주님과 같이 못 산다.

6. 진정 사랑하는 자만 같이 산다.

7. 가령 제자가 선생을 진정 사랑하면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편지하고 연락한다. 성자 주님과도 그러하다.

8. 성자 주님은 전능하신 신이시라 세상 사랑의 대상자보다 수천 배 더 이상적인 사랑을 해 주신다. 성자 주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의 사랑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된다.

9.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

10. 주님은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해도 다

해 주지 못한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11. 주님은 수백, 수천 가지로 사랑해 주신다.

12. 주님의 사랑은 천국에 가게 한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천국에 가게 하지 못한다.

13.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해도 꼭 죽을 데서 못 살린다. 주님은 신이시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니, 그 사랑으로 마음대로 살리신다.

14.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랑을 하신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못 한다.

15. 성자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 격이다. 고로 ‘사랑’을 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세상 사랑의 대상자는 겨우 이성 관계 상대자 정도다. 고로 성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여라.

16. 주님은 못 할 것이 없으시다. 인간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을 비교하면, 백지장과 태산 같다.

17. 천국은 가 본 자만 알고, 듣고 믿은 자만 안다. 주님의 사랑도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만 알고, 주님께 사랑을 드린 자만 안다.

18. 사랑은 준 만큼 그 비율에 의해서 받는다.

19. 육으로는 성자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육은 감당하지 못한다. 육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무거운 바윗덩이를 손으로 받는 격이라서 육은 감당하지 못한다. 무거운 바위는 그 지역의 땅 자체가 받듯이, 주님의 사랑은 영이 받아야 된다. 영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육도 그 사랑을 받아 즐거움을 느낀다.

20. 어린아이가 큰 재산을 받고 즐거움을 느끼듯 육은 그 정도밖에 못 느낀다. 영에 속한 자만 주님 사랑을 크게 받는다.

<2012년 5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주님을 사랑해라.” 해도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른다.

2. 성자 주님이 “내가 보낸 자를 사랑해라.” 하셔도 그 뜻을 아직도 모른다. 아는 자가 많지 않다.

3. 아는 자는 행한다.

4. 초림 때 성자의 육은 ‘나사렛 예수’였다. 나사렛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했다. 이는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왜 그렇겠느냐. 성자 본체는 전능하신 영이라 안 보인다. 고로 그가 보낸 육을 따르는 것이 근본자인 성자를 따르는 것이다. 초림 때 성자의 육신은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였다.

5. 재림 때인 이 시대도 성자는 보이는 육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자는 말씀하신다. “나의 육을 따라라.”

6. 이 시대에 성자가 오셔도 그가 육으로 쓰는 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성자와도 일체 되지 않아서 같이 못 산다. 고로 성자 주님은 “나의 육과 일체 된 자만 나 성자와 일체 되어 육도 휴거되고 영도 휴거된다.” 말씀하신다.

7. 성자의 육과 일체 되어 그 말을 듣고 행하며 따르는 자는 ‘육 휴거, 육 부활’을 이룬 자다. 그 영도 역시 사망권에서 나왔다.

8. 진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하면 수박 겉 핥기다.
9. TV는 전파를 통해서 화면이 나온다.
10. 이와 같이 성자 주님의 육과 일체 된 자는 육파, 생각파, 정신파, 영파가 성자 주님과 통한다.
11. 육과 일체 되면 마음과도 영과도 일체 된다. 남녀가 사랑으로 육이 결합됐는데 마음과도 결합되지 않겠느냐.
12. 육과 일체 되어야 육의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 영의 세계 역사가 진행된다.
13. 남녀가 사랑으로 육이 결합됐다면, 생명 번성의 역사가 시작되어 정신도 일체 되어 서로 생각한 것이 진행된다.
14. 섭리사도 성자 주님의 육과 사랑으로 일체 되었기에 섭리역사가 번성하여 마음과 생각도 일체 되어 그 생각을 실현시켜 왔고, 그로 인하여 성자 주님을 맞고 일체 되어 하늘 뜻을 펴 영이 부활되어 산 영이 되었다.
15. 성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돌감람나무 비유를 애타게 말씀해 주셨다. (롬 11:17-20절 봉독) 이같이 땅에서 태어난 육에 하늘에서 온 성자가 일체 됨으로 사람들을 구원했다. (롬 11:17-20)『[17]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16. 이 시대도 땅에서 태어난 육에 성자가 일체 되었으니, 모두 그 육과일체 되어야 그 마음과 일체 되고 그 영과 일체 된다. 그 영은 성자 주님이시다.
17. 주님은 육을 통해 말씀하시고 움직이신다. 주님은 육을 기구로 쓰신다.
18. 의사가 수술할 때는 수술 기구를 쓴다. 주님도 시대 사명자의 육을 손발로 쓰시고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19. 시대 사명자의 육과 일체 돼야 영이신 성자와 일체 된다.
20. 성자 주님은 사명자의 육을 쓰고 느끼고, 받고, 대화하고, 행하신다.
21. 성자 주님은 사명자의 육과 일체 된 자를 손발로 쓰신다.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주님은 '뇌'다. '근본체'다. 뇌는 육을 통해 행한다. 고로 뇌의 생각과 뇌의 모든 것을 전달받으려면 뇌가 쓰는 육과 일체 되어라. 뇌는 성자요, 뇌의 육체는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를 비유했다.
2. 육과 일체 되어야 마음과 정신과 영과도 일체 되기 쉽다.
3. 성자 본체는 안 보인다. 옆에 계셔도 안 보인다. 한 단계 낮춰서 성자가 쓰시는 육을 보면 볼 수 있다.
4. (주 편) 통해서 보아라.
5. (주 편) TV를 통해서 실제 사람을 보듯이, 성자의 육을 통해서 성자를 보아라.
6. (주 편) 새벽 시간은 황금 시간이다. 잠만 깼다고 황금 시간이 아니다. 황금 같은 기도를 하고, 황금 같은 말씀을 받

아야 황금 시간이다.

7. (주 편) 나의 욕을 통해 준 말씀을 받아라.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황금 시간이다. 선생도 이 말씀을 황금 시간에 받았다.

8. (주 편) 무엇이 황금이나. 금방의 금을 논하느냐. 내가 말하는 황금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기도와 사랑이다.

9.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사명자와 하나 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도 하나 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한다. 이는 그 욕신을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쓰셨기 때문이다.

10. 보낸 자를 제쳐 놓고 전능자와 직접 통하려고만 한다.

11. 보낸 자와만 통해도 전능자와 통한다.

12. 보낸 자와 안 통하면 전기선만 배선한 격이라서 전기가 통하지 않듯이 전능자와도 통하지 않는다.

13. 보낸 자와 일체, 전능자와 일체다.

14. 보낸 자를 통해서 전능자와도 일체 된다.

15. 땅에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대망하며 기다렸더라도 맞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은 땅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맞지 못한 것이다.

16. 삼위일체는 전능하신 신이시다. 고로 땅의 일을 할 때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 하신다.

17. 인간이 전능자와 직접 통하고 직접 맞으려 했기에 모두 실패했다. 예수님 때인 신약역사 때도 그러했고, 지금 이 시대 성약역사 때도 그러했다.

18.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과 심정을 받으려면 욕을 접해야 된다. 욕이 말해 줘서 그 정신과 사상과 심정을 받는 것이다.

19. 성자 본체를 진정 사랑하고 주와 일체 되려면, 먼저 성자의 욕과 일체 되어라.

20. 선생이 보낸 자와 일체 되면 그로 인하여 선생과도 일체 된다. 먼저 선생이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선생은 너무 차원이 높아서 못 오른다.

21.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과 주님을 맞는다. 이는 절대 하나님의 법칙이니, 거역자가 되어 거스르지 말아라.

22. 혼자 돌을 금이라고 하면, 정신이 온전한 자가 아니다. 이는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23. 성경의 역사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과 성자가 그 욕으로 쓰는 자와 일체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자들이 맞지 못하고 실패했다.

24.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맞아야 된다.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그 욕이 하나님과 성자가 계획하신 사명을 하기 때문이다.

25. 반드시 성자의 욕과 일체 되고, 성자와 일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존재할 때까지 그리해야 된다.

26. 밥, 국, 찌개를 다 먹을 때까지 그릇과 음식이 일체 되듯이, 자기가 존재할 때까지 성자의 육과 일체 되고 성자와 일체 되어야 한다.

<2012년 5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대 하늘의 사명자가 오면, 사탄은 기다리는 자들을 혼동케 하여 못 맞게 한다.
2. 그곳에 발판이 없으면 시대 하늘의 사명자가 와서 역사를 펴지 못한다. 나사렛 예수님 때도 그같이 됐다.
3. 사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못 하게 하여, 오는 자도 기대가 어긋나게 하고 맞는 자도 못 맞고 기대가 어긋나게 했다. 사탄이 이같이 해 왔고, 지금도 이같이 한다.
4. 성자의 초림 때도, 재림 때도 사탄은 야비한 짓을 하며 메시아를 못 맞게 작전을 폈다.
5. 성자 주님은 육신을 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비하게 하시고, 주를 알고 맞게 하셨다.
6. 개인에게도 늘 성자 주님이 역사해 오셨는데, 사탄은 주님이 오셔도 못 맞도록 우리를 방해하여 예비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평탄케 하지 못하게 한다. 고로 성자 주님이 오셨다가 그냥 가게 한다. 기도하여라.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을 맞도록 예비하여라.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가 만나고 가신다.
7. 자기 마음에 맞게 해 주지 않으면 불신하는 생각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다.
8. 가룟 유다는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다. 그 사랑을 배척했다.
9. 선생도 따르는 자들에게 해 줄 것을 다 해 주었다. 그런데 자기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마음에 맞게 해 주지 않았다고 서운하다 한다. 구원하는 말씀을 줘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나오게 해 주었으면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 한 것이고, 해 줄 것을 다 해 준 것이다.
10. 지구촌에서 구원받고 오는 수많은 자들의 심리를 그때그때 다 맞춰 주지 못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자 주님과 사명자가 그때그때 자기 마음에 맞게 맞춰 주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안 해 주면, 서운함을 타고 마음이 변질되어 외면한다. 그러다가 사망의 무서운 사탄이 침범하여 사망 고통의 세계로 간다.
11. 성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곧 보낸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
12. 성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보낸 자에게 자신의 일을 맡겼기 때문이다. 선생도 그러하다.
13. 기도하면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도록 법을 정하셨다. 우리가 법을 행하니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이다.
14. 컴퓨터가 잠겨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면 찾는 것이 나오듯이, '기도'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치는 격과 같다.
15. 기도하면 묶였던 것이 자동적으로 풀어지는 격과 같다.
16. 기도하면 왜 이루어지는지 인식하여라. 기도는 마치 애인과 약속한 장소에 가면 애인을 만나는 격이다. 애인과 약속한 장소에 안 가면 애인을 못 만난다. 약속 장소로 가듯이 기도하여라. 진정한 기도다.
17. 꿈도 하나의 계시로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낙심하고, 제대로 해석하면 감탄한다.

18. 사람들은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낙심한다. 처음부터 잘되겠느냐.
19. 새 새끼가 처음부터 나느냐. 처음에는 걷다가 서서히 날갯죽지가 나서 때가 되어야 난다.
20. 걷다가, 뛰다가, 난다.
21. 처음에도 나중에도 비약은 없다. 한 번에 나는 것은 없다는 말이다. 다만 더 행했기에 보다 비약이 일어났을 뿐이다.
22. 반복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조금씩 고쳐 가면, 자신 없는 것도 결국 잘하게 된다. 다만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23. 천국도 매일 조금씩 차원을 높이면서 이룬다. 6000년 구원역사가 점점 차원을 높이며 흘러오다가, 결국 이 시대 마지막 역사 때 천국의 근본의 말씀이 나왔다.
24. 차원을 높이면서 행해야 제대로 하게 된다.
25. 인간의 두뇌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았기에 어떤 것을 행하면 그것을 보고 생각나 더 차원 높여 할 수 있게 된다.
26. 영의 세계, 곧 신앙 세계는 한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여러 차원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조직해 놓았다. 고로 한 번에 가려 해도 갈 수가 없다. 계속 차원을 높이면서 가야 갈 수 있다.
27. 성격이 급한 자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한 번에 높이 오르려 한다.
28. 월명동 감람산에 오를 때도 몇 차원을 올라야 감람산 팔각정에 간다.
29. 기도도, 행실도, 삶도, 신앙도, 사랑도 다 그와 같다.

<2012년 5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잔칫집에 가는 자는 밥을 먹지 않고 가듯이 섭리를 뛰며 주님의 사명을 하는 자들은 그같이 해야 된다.
2. 집에서 실컷 배불리 먹고 잔칫집에 가서 잔칫상을 받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집에서 배불리 먹고 왔네.” 하며 투정한다.
3. 할 일을 놓고 먹고 마시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먹으면 잔칫집 음식이다.
4. 잔칫집에 가는 자는 집에서 몇 술만 뜨고 가듯이, 사명자는 먹을 것 다 먹고,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매일 그같이 하다가는 사명 못 한다. (아멘!)
5. 먹다가 판 깨지고, 자다가 판 깨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다가 주님이 시키신 일의 판이 깨진다.
6. 성공자는 다른 것은 포기해도 오직 성공길만 포기하지 않고 쫓는다.
7. 어떤 면에서든지 선수가 되는 자는 1단계로 수십 번 해 보다가, 2단계로 수백 번 해 보고, 3단계로 수천 번 해 보고, 4단계로 수만 번 해 봐서 착오 없이 할 때 선수가 된다.
8. 첫 번째 아담은 타락함으로 실패했고, 두 번째 나사렛 예수님은 육신이 죽어서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시대 사명자는 펍박 때문에 육신이 갇혀서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성자 주님께서 육신 가지고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할 일

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9. 6수는 끝나는 수다. 사탄 수다. 토요일도 6수로 일주일이 끝나는 수다. 6000년은 끝나는 수다. 7000년은 회복하는 수다. 7수는 하늘 수로 이상적인 수다. 성공 수다.

10. 6까지는 사탄과 겨루게 된다. 하늘 편은 7수다. 고로 끝까지 가면 이긴다. 6수보다 한 수 높은 단계는 사랑 수다. 성자 주님을 100% 사랑하면 7수가 된다. 마지막 7수인 1000년 성약역사 수는 1000년 사랑의 혼인 잔치 수다. 사랑의 수다. 고로 누구나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 수보다 한 수 높여 7수, 곧 사랑 수로 오직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11. 6수까지는 믿음, 말씀, 찬양, 감사, 기도, 인내, 순종하는 수다. 그래도 사탄은 우리와 겨룬다. 6수에서 마지막 1수를 더하면 7수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탄은 사랑하지 못하니 6수에서 끝난다. 성자 주님을 사랑해 버리면 사탄의 것은 끝난다. 사탄은 사랑의 반대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 버리면 끝난 것이다.

12. 간절한 기도와 사랑이다.

13. 간절한 마음만 갖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행하여라. 마음을 먹고 행함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14. 진실로 간절한 소리는 마음이 뜨겁다. 고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실현한다.

15. 간절한 마음은 마치 어떤 것을 만들 때 정성 다해 만드는 격과 같다.

16. 성자 주님은 진실하시고 참이시다. 고로 인간이 진실하고 참일 때 주님과 통한다.

17. 간절하지 않아서 가다가 만다.

18. 간절하지 못해서 기도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19. 자기 영이 사망권의 슬픈 곳에 있으면, 그 욕이 늘 슬픈 노래나 부르고 인생의 슬픈 탄식 소리를 애달프게 낸다.

20.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노래하고 춤을 추지만, 그 영은 더 사망으로 빠져 고통을 당하고, 그 영향을 받아 그 욕도 더 흑암권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다.

21. 사탄과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른 것이 있으니, 사탄은 성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로 우리가 구원만 받으려 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하기 쉽다.

22. 사탄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으니, 성자 주님과 성자의 욕신을 절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자 주님과 성자의 욕신을 절대 사랑하면 사탄을 완전히 멸한다.

<2012년 5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4월 8일 잠언

1.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먹거리가 되고 만다.

2. 시대 하늘의 사명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중심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

3. 성자가 이 시대에 재림했다면 무엇을 하시겠느냐. 성자 본체가 보낸 자를 욕으로 쓰니, 성자가 그를 통해 무엇을 행 하시겠느냐. 그 욕을 통해서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하니, 인생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4. 성자가 하시는 일을 그 욕을 통해 그대로 하신다.

5. 성자 주님 없이 이 시대에 자기가 나사렛 예수님같이 태어나서 자기 자체가 역사한다고 하는 자는 사탄의 먹거리요, 이단이다. 사탄이 먹어 이단이 된 것이다.
6. 재림 때 성자 본체가 땅에 재림하여 그 시대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택하여 그를 통해 성경에 약속한 일을 한다고 하는 자는 참된 자요, 바로 그가 성자 주님과 함께 사탄을 멸하고 이 땅에 성약역사 이상세계를 이루어 땅에서 하는 육신 휴거를 이루게 하고, 영 휴거를 예비하게 한다.
7. 인간 자체 메시아는 없다.
8.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오시고 성자가 다시 오셔서, 성자가 세상의 합당한 자의 육신을 택하고 그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 '재림'이다. 성자 본체가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다. 성자 본체는 육이 아닌 영체이니, 이 시대에 예비된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역사하신다. 재림 때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가 성자 주님의 재림의 몸이다.
9. 인간은 육이다. 육은 영원히 육이다. 성자의 육은 성자의 상대체인 신부로서 재림 때 성자의 육으로 쓰여진다.
10.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오시듯이 그대로 오실 줄 알았다. 초림 때는 삼위일체의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 재림 때도 삼위일체의 성자가 땅의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온다. 성자 본체는 영체로 오니, 세상 사람의 육신을 써야 된다. 재림 때 성자의 육신은 성자의 몸이 되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새 역사 재림 성약역사를 편다. 그때 그 육신이 주님 몸이 되어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 하듯이 재림 때 역사를 편다. 이때부터 성약역사가 시작 것이다. 육신 쓴 성자 주님이다.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 쓰고 오셨듯이, 재림 때도 시대 사명자의 육 쓰고 또 오신다. 그 육을 통해 성자를 맞는 것이다. 재림한 성자 주다.
11. 머리를 자르고 머리 스타일에 손대는 것은 상대가 해 줘야 속 시원하지만, 성자 주님에 대해서는 사명을 받은 자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시대 사명을 받은 자가 성자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마치 이발사가 이발해 주듯이 확실하다.
12. 성자 주님이 계시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맞다. 계시자들을 통해 성자 주님이 쓰시는 육신 가진 자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맞다.
13. 베드로가 주를 깨닫듯이 확실하게 깨달아라. 그래야 그로 인하여 한 번에 수천 명씩 주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온다.
14. 시대에 하나님과 주님이 보낸 자가 누구인지 깨달는 만큼 힘도 오고, 능력도 오고, 지혜도 오고, 하나님과 주님이 임해서 역사하신다.
15. 성자 주님의 육이 실상은 그 시대에 모두가 기다리는 자다. 땅에서는 육이지만, 성자 주님이 그를 쓰시기 때문이다.
16. 주역 인물이 바뀌어서 모를 뿐이다. 입장을 깨달아야 된다. 성자의 초림 때 이스라엘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지 않고서는 나사렛 예수님이 그 시대의 구원자인 줄도 모르고, 성자 본체가 그 위에 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다.
17. 사명을 모르고 따르면 믿어도 행해도 소용없다.
18. 한 나라의 왕이 왕비와 함께 자기가 다스리는 제2민족에게 갔다. 왕이 간다고 했기에 갔다. 그러나 왕의 육신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어서 왕비를 통해 모든 것을 나타내야 했다. 그러나 그 민족 사람들은 왕이 보낸 왕비를 보고도 왕이 직접 안 왔으니 왕이 온 것을 거의 안 믿었다. 그중의 소수는 믿고 따랐다. 믿고 따른 자들은 왕비를 통해 왕을 내적으로 만나 보고, 왕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왕비를 통해 자기들이 기다리던 왕이 나타난 것을 알았다. 왕은 믿고 따른 자들과 함께 뜻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펴 나갔다. 왕이 보낸 왕비의 말을 듣고 왕의 근본을 안 자들은 왕의 말대로

행하여 왕비와 함께 잔치를 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왕이 직접 와서 왕비와 함께 잔치한 자들을 은밀히 데려갔다.

19. 이 세상 정치 세계에서든, 사회에서도 큰 자는 꼭 자기 신복을 쓰고 나타난다.

20. 세상은 육의 세계라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세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뜻을 펴신다. 선생도 나타날 때 나의 생각과 행실이 일체 된 자를 쓰고, 그를 통해서 선생의 뜻을 나타낸다. 불법으로 행하거나 자기 주관으로 하는 자들은 빛나가는 곳으로 가게 하여 선악이 갈리게 한다.

21. 근본자와 보낸 자는 한 사명이다.

22. 근본자와 대행자는 한 사명이다.

23.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 본체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던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직접 올 줄 알고 하나님만 기다렸다.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는데도 몰랐다. 전능하신 영체인 하나님은 땅에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몰랐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을 통해 나타나신 것을 믿고 살았으면서도 몰랐다. 아는 자만 역사를 펴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간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들이 원하는 대로 오지 않으시고, 천륜의 법칙에 따라 땅에 오셨다.

24.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 아들 성자와 함께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 왜 그 육신을 쓰고 오셨을까? 땅의 인간들과 대화하고 말하며 역사를 펴야 하니까 땅의 사람 중에서 아들의 몸을 택하여 그 육을 통해 행하셨다.

25.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기다린다.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고 바라지, 다른 자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여 육체로 승천한 것을 믿으며,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 육체 모습 그대로 올 것을 믿고 기다린다. 그러나 그 육신은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못 오기도 하고, 그 육신을 쓴 본체가 성자이시기에 다시 올 때도 성자 본체가 오신다. 역시 재림 때도 초림 때와 같이 땅에서 예비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과 성자가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보내신다. 이 시대는 신부 시대로서 신부로서 조건을 세운 자의 육을 쓰고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오신다. 성자 주님은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육으로 삼고, 성자의 존재를 못 보니 모르는 자들에게 그 육을 보내어 말 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을 깨달아야 성자 주님도, 선생도 제대로 맞는다. 제대로 맞고 행하여 변화되어야 휴거된다.

<2012년 5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계시도 한 단계 깊이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다.

2. 사람의 지체도 한 단계 깊이, 높이 보면 다른 세계다.

3. 성자 주님도, 그가 보낸 사명자도 한 단계 깊이 보아라. 성자 주님이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 격이 아니냐. 삼위일체가 아니냐. 성자가 보낸 사명자는 누구냐. 보이는 삼위일체의 몸이 아니냐.

4. 그 시대 하늘의 사명자는 형제다. 그러나 한 단계 깊이 봐라. 보이는 기다리는 자가 아니냐.

5. 선생이 보낸 자도 한 단계 깊이 보아라. 선생이 보낸 자를 보통으로 보면 형제요, 한 단계 깊이 보면 선생이 아니냐. 주님과 선생이 사명을 줘서 그에게 선생의 말이 갚기에 그러하다.

6. 우주계를 한 단계 깊이 봐라. 태양계 아니냐. 태양계의 8개 행성(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들을 한 단계 깊이 봐라. 지구 아니냐.

7. 인간을 한 단계 깊이 보라. 영 아니냐.
8. 유형 세계를 한 단계 깊이 보라. 무형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 아니냐.
9. 악인 세계를 한 단계 깊이 보라. 지옥 세계 아니냐.
10. 선인 세계인 새 역사를 한 단계 깊이 보라. 천국 세계 아니냐.
11. 보낸 자를 한 단계 깊이 보라. 옆에 성자 주님이 와 계시지 않느냐.
12. 악인들을 한 단계 깊이 보라. 옆에 지옥사자가 와 있지 않느냐.
13. 욕 휴거를 한 단계 깊이 보라. 영 휴거 아니냐.
14. 기성 신약 역사를 한 단계 깊이 보라. 성자 주님이 오셔서 성약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느냐.
15. 2012년을 한 단계 깊이 보라. 어떤 해이겠느냐. 역사는 역사로 따져 역사를 분별하는 것이다.
16. 역사는 돌고 도는 동시성이다. 그러나 차원 높여 역사를 펴 나간다.
17.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영으로서 욕을 쓰시고 돌고 돌면서 차원 높여 역사를 펴 나가신다.
18. 구약에서 4000년간 발육하고 성장하여 한 단계 컸다. 한 단계 더 깊이 하고 더 높이 하니 신약 역사였다.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종 입장으로 살다가 형벌 받고 종 역사를 벗어나 아들 입장이 되었다. 그리고 신약에서 2000년간 발육하고 성장하여 한 단계 컸다. 곧 성약 역사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 아들 입장으로 살다가 형벌 받고 아들 역사를 벗어나 애인, 신부가 되었다. 역사마다 다른 자들만 옛 주관을 벗어났다.
19. 악인들이 한 단계 더 악으로 가면 사망길 지옥 세계다.
20. 의인들이 한 단계 더 선으로 가면 생명길 천국 세계다.

<2012년 5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한 단계만 차원을 높여 더 깊이 생각하고 행하면 못 얻을 것을 얻게 된다.
2. 굼벵이와 애벌레가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이면 부활되어 더 이상 땅에서 살지 않고 매미 신, 나비 신이 되어 하늘로 날아다닌다.
3. 인생들아, 한 단계 더 깊이, 높이 보고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 보라. 네 영혼이 천국인이 되어, 신이 되어 땅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4. 자기 자녀들을 한 단계 높이 보고 대하고 살아라. 그들도 결혼하면 부모 된다.
5.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한 단계 더 깊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 모두 해결된다.
6. 한 단계 더 높여 연구다. 한 단계 더 높여 만들기다. 그러면 자전거가 자동차 되고, 자동차가 비행기 되고, 비행기가 우주선 된다.

7. 한 단계 더 깊이, 높이 살아라. 그러면 섭리사에서 성자 주님과 통하고 선생과 통한다. 지금은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
8. 한 단계 더 깊이, 높이 살면 염려·걱정·근심 안 해도 된다.
9. 월명동 성지땅을 한 단계 더 깊이, 높이 개발하면 남녀 한 쌍같이 된다. 이제 건물 건축만 하면 자연성전과 한 쌍으로 부활된다.
10. 나무, 돌, 꽃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깊이 보아라. 그러면 모두 작품이다.
11.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고 행하여라. 그래야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된다.
12. ‘관리’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하여라.
13. ‘전도’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성자 주님과 그가 보내신 사명자와 같이 하여라.
14. 한 단계 더 높여서 하면 돌감나무 열매에서 참나무 열매다.
15. 성경을 한 단계 더 깊이 봐라. 꿀 같은 근본의 말씀 나온다.
16. 사람을 한 단계 더 깊이 봐라. 근본으로 알게 된다.
17. ‘인간 보화’는 한 단계 더 깊이 봐야 찾게 된다.
18. 한 단계 더 깊이 볼 때 선악이 분별되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사망길과 생명길을 알고 분별하게 된다.
19. 한 단계 더 깊이, 높이 가야 사탄 지역인 ‘666’을 벗어나 하늘 지역인 ‘777’로 가서 주와 일체 된다.
20.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
21.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근본자를 만난다.
22. 한 단계 더 높이 오르니 시대 말씀을 받게 됐다.
23. 한 단계 더 높이 키우고 수고하니 열매를 따게 되었다.
24. 악으로 한 단계 더 가면 완전 악이요, 선으로 한 단계 더 가면 완전 선이다.
25. 상대방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 깊이 생각해야 이해되고 용납된다.
26. 상대방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올라야 다스린다.
27.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고 높이 올라야 자기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회개도 하게 된다.
28. 모두 지금 자기 위치와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여 행해야 할 때가 바로 올해다.
29. 한 단계 더 차원을 높여야 현 위치에서 벗어난다.

1. 영은 육체가 아니다. 영의 실상과 영의 행함을 보이려면, 영은 육체를 쓰고 나타나서 행한다.
2.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세상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시며 역사하시려면 육신 있는 자를 쓰고 나타나 행하신다.
3.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를 찾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자 주님께 집중하면 그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4. 전능하신 성자라도 세상에 어떤 뜻을 펴려면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그 육신을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외치시고, 시대의 일을 하신다.
5. 육신 자체로는 영과 못 통한다. 자기 육과 영이라도 자기 육이 자기 영과 통하려면 자기 육신의 마음·정신·생각·혼을 통해서 자기 영에게 가야 된다. 또한 자기 영이라도 자기 육을 통해서 육의 일을 해야 한다.
6. 삼위일체의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격이시다. 성자는 신약역사 때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가 되었다. 고로 그(나사렛 예수님)를 본 것이 전능자 성자를 본 격이었다. 그 본체는 볼 수가 없었다.
7. 신약시대 때부터는 하나님도 성자도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다. 고로 신약역사 이후부터는 하나님도 성자도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고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인식한다. 이 인식이 성약역사 때까지 연속되고 있다.
8. 신약 때부터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로 입력되고 인식되어, 그 후 성자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을 때도 성자는 역시 그 육체의 형상인 그 영체를 보이며 나타나셨다.
9.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제자들에게 영체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잘 몰라보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예수다. 맞다. 손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라. 창으로 찢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십자가에서 죽은 나 예수가 아니냐?” 했다. 영체는 육체를 닮았다. 고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 있을 때 성자가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영체로 나타나셨을 때도 역시 성자가 그 영체를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10. 사람의 영은 그 육의 형상과 모양을 많이 닮았다. 자세히 봐야 안다.
11. 꿈에 자기 영을 보는 것은 자기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초자연적 현상으로 자기 마음·정신·혼이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실제 영의 모습이 아니다. 육의 마음·정신·혼을 통해서 보는 영의 모습이다.
12.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와 영체를 늘 메시아로 믿고 살았고, 또 나사렛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성자가 함께 하시어 나타났기에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 고로 지금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알고 부른다. 성약시대인데도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을 불러도 성자가 나타나신다.
13.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인식하고 있기에 그러하다.
14. 인식관을 바꾸어라. 나사렛 예수님의 영체와 성자를 쪼개어 보아라. 초림 때는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재림 때는 성자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나타나신다. 지금은 성약역사라서 인식관을 바꾸면, 성자는 성약역사의 사명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15. 성자 주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 늘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다. 육신이 배울 때는 학문의 선생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 성자 주님은 영적인 선생이기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나타나 나를 가르치셨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나타나셨다. / 초등학교 선생님은 벌써 죽었는데, 죽은 자가 꿈에 나타나면 기

분이 나뉘었다. 그래서 어느 날 성자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다. “주님이 상징적으로 죽은 초등학교 선생으로 나타나시니 안 좋습니다. 이제 제 인식관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애인이시니,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게 나타나실 때는 그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세요.”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같이 하자.” 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성자 주님은 내가 인식시켜 놓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 모두 한 차원 높이 깊이 생각하자.

16. 또 한 차원 깊이 높이 생각했다.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구세주임을 알고, 삼위일체의 성자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성자를 부르면 본체는 안 보여 주시니, 성자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 고로 성자 본체에 대해 달리 인식하려고 나사렛 예수님 말고 다른 자로 생각했다. 역시 인식을 바꾸니 성자는 인식을 바꾼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 성자는 신약시대에는 신랑으로 오지 않으셨다. 형제 입장으로 오셨다. 고로 신약 때 성자의 육인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은 형제 입장이다. / 성자는 성약시대부터 신랑으로 오셨다. 고로 ‘신랑’하면,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자다. 인식과 메모리를 달리 하여라.

17. 삼위일체 성자를 부르면, 성자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으로 보이셨다.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의 성자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생각했다.

18. 나사렛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난 자로서 초림 때 삼위일체가 메시아로 쓴 몸이다. 그 영은 그 육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다. 그 영은 삼위일체가 아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 임한 성자의 영은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격인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령 어머니, 성자가 삼위일체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

19. 구약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다. 고로 모세가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육으로 쓴 그 시대 구원자였다. /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통해 나타나 말씀하셨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격이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예수님의 영은 안 들어간다. 그 영은 땅에서 육신을 쓰고 생긴 영이라서 전능자가 못 된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과 육은 신약 주관권 구세주다. 신약 2000년 동안 그 영과 육을 성자가 쓰고 역사하셨다.

20. 구약역사가 끝나고,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신약역사를 시작하셨다.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왔다. / 신약역사가 끝나고, 성자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 신부인 사명자를 통해 성약역사를 시작하셨다. 성약역사는 1000년 동안 간다. / 성약역사는 신부역사라 아들역사인 신약역사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다. 형제사이보다 부부사이가 훨씬 더 차원이 높듯이 높다. 이와 같이 성약은 신약보다 한 단계 높은 역사다. /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삼위일체의 영이 아니듯이, 성약시대 성자의 대상이 되는 신부, 곧 성자의 육이 되는 자도 삼위일체의 영이 아니다. 성약역사 기간 동안 성자의 육이 되어 성약의 구원자로 쓰인다. / 성자의 초림 때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이 아들 입장으로 태어났기에 그로 인하여 2000년 동안 아들역사가 일어났듯이, 성자의 재림 때 성자의 육이 세운 신부의 조건으로 인하여 1000년 동안 신부역사가 일어난다.

21. 신약인들은 형제 입장에서 성자를 형제로 보고 대하고, 성약인들은 신부 입장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보고 대한다. / 신약인과 성약인의 관계는 형제다. 시집 온 여자가 남편에게만 신부지, 남편의 형제들에게는 신부가 아니고 형제다. / 형제 같은 시집에서 남편의 형제들이 신부를 시집살이시키며 고통을 주듯이, 이 시대도 성약인들의 남편 되시는 성자 주님이 신부들을 십자가 지게 한 것이 아니고, 남편의 형제들인 신약 기성인들이 신부들을 십자가 지게 한 것이다. / 우리는 성자의 신부임을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성자의 신부다.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쓰고 인생들을 자녀, 아들, 곧 형제로 구원시키러 온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 성자가 다시 오셨다.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시대 사명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 그러나 인식관 때문에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실 때만 그렇지, 재림 때 성자 주님은 이 시대에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를 통해 나타나 말씀하시고 성약 1000년 역사를 펴 나가신다.

22.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로서 종의 중심자로 왔다. 고로 구약인들은 누구든지 다 종이다. 종을 통해서 인생들을 종급으로 구원하셨다. /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로서 아들로 왔다. 성자가 형제 입장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에

게 임하여 그 욕을 썼기에 나사렛 예수님은 종급 사망권에서 나와 아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삼위일체 성자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아들의 첫 열매다.

23. 이 시대 성약 때는 성자가 신랑 입장으로 오셔서 신부의 욕을 쓰고 역사를 펴 나간다. 성자의 욕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신부의 첫 열매다. 그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성자의 신부의 열매가 열려 나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된 것이다.

<2012년 5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이사야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나사렛 예수님께 삼위일체의 신이 지혜와 총명과 모략으로 임했다. 나사렛 예수가 삼위일체의 한 존재자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전능자의 뜻대로 쓰여진 자다. 그는 신약 때 하나님과 성자의 욕으로서 신약의 메시아다. 곧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것이 되었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 되었다. 나사렛 예수는 창조주 삼위일체가 아니다.

2.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께 전능자 성자 본체의 영이 임했다. 성자는 성자이고, 예수는 예수다. 성자 본체는 성자 본체이고, 나사렛 예수의 영은 나사렛 예수의 영이다. 이를 쪼개서 생각해야 섭리사가 한 차원 높아진다.

3. 성자 본체가 재림하신다. 구약 - 신약 - 성약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다. 땅에 있는 자들은 전능자 앞에 시대별로 구약 때는 종급 대상이고, 신약 때는 자녀급 대상이고, 성약 때는 신부급 대상이다. 시대별로 표상자, 곧 구원자로 쓰여진 자도 그러하다. 구약의 구원자는 전능자 앞에 종 입장이고, 신약의 구원자는 전능자 앞에 자녀 입장이고, 성약의 구원자는 전능자 앞에 신부 입장이다.

4. 재림 때는 성자가 재림하신다. 땅에서 우리 욕을 데리고 역사를 펼 때는 재림에 해당되는 신부 되는 사역자를 성자의 욕으로 쓰고 역사를 펴시고, 때가 되어 우리 영을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실 때는 성자 본체가 직접 오셔서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인식상,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역사하셨다.

5. 성경을 보면 ‘성령이 온다.’ 했다. ‘성령’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삼위일체로 하나님 격이다. 모성신이시다. / 또 성경을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하나님의 신이 강림한다.’ 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 삼위일체가 땅에 오실 때는 ‘사람’을 쓰고 오신다. 신의 대상자는 땅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람의 뜻을 이루려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여진다.

6.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가 재림하신다. 그래서 크다는 것이다. 신약 때도 성자가 하나님과 함께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욕신을 쓰고 아들급으로 신약역사를 이루셨다. 신의 대상인 땅의 사람이 그 시대 구세주였다. 근본은 삼위일체이시다.

7. 성약시대에는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여 땅의 신부의 몸을 쓰고 1000년 동안 재림역사, 곧 신부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성약역사가 크다. 그래서 성자 주님은 계시에서 “네 선생이 누군지 깨달아라.” 한 것이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땅의 사명자를 통해 신부로 변화된 자들을 휴거시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한다. 땅에서는 욕으로, 하늘에서는 영으로 한다. /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님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어,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보다 보낸 자가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 쓰는 자가 크냐, 쓰임을 받는 자가 크냐.

8. 선생이 보낸 자가 크냐. 선생이 크냐. 선생이 보낸 자만 믿고 따르고 선생을 모르면 절대 안 된다. 보낸 자로 인하여 본체와 일체 되어야 한다. 고로 보낸 자는 중보 역할을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은 초림 때 삼위일체 성자가 보낸 자다. 고로 그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신약의 메시아로서 신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9. 나사렛 예수는 중보자요, 중매자다. 물건의 주인은 그 물건을 전달한 심부름꾼이 아니고 물건을 준 자다. /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항상 생각하여라. 스스로 구세주는 없다. 성자가 임할 때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임하여 그 사람을 통해 사역을 해야,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된다.

10. 삼위일체의 성자는 구원 사역을 맡아 세상에 역사한다. 그는 전능자다. 그는 한 번도 육신을 가진 적 없는 신의 존재자로 태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스스로 존재한 자다. 성자와 땅에서 난 자를 구분하여라. 성자 본체는 전능한 영체이기에 시대마다 땅에서 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역사한다. / 고로 성자의 육이 된 자는 그 시대 구원자로서 그 주관권 사명자다. 영원한 신랑은 아니다. (다시 말해 초림 때 성자의 육이 된 나사렛 예수는 신약의 구원자다. 성자가 그 육신을 썼으니, 그가 신약 때 메시아였다. 나사렛 예수가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한 삼위일체의 성자가 아니다. 다시 오는 이도 나사렛 예수의 영이 아닌 성자 본체다. 그 성자 본체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다.)

11. 전능자 성자가 세상에 오셔서 들개 같은 자들에게 맞아 죽은 것이 아니다. 성자가 보내서 성자의 육으로 쓰는 악한 육신, 곧 사람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들개 같은 자들에게 맞아 죄인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을 죽였기에 성자를 죽였다고 한 것이다.

12. 전능자 하나님 격인 성자가 들개 같은 자들에게 맞아 죽었으면, 그 엄청난 사탄들에게 성자가 맞아 죽고 천국까지 뺏긴단 말이냐. 성자가 보낸 자가 죽은 것이지, 보낸 근본자이신 성자는 당한 격만 되는 것이다. 고로 행한 대로 갚아 주는 것이다.

13. 선생이 처음에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인생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도 악한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니, 어떻게 그를 믿고 내 생명을 맡기고 따르겠느냐고 기도했다. 이것이 늘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능한 삼위일체 성자가 맞아 죽었느냐. 사람인 예수가 죽었지. 성자가 시킨 일을 하다가 세상이 악하여 그가 대신 죽어 구원길을 열어 준 것이다. 나 성자가 보낸 자를 그같이 하였으니, 나 성자도 그같이 대한 것으로 보고 심판했다.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전능자를 믿어야 된다.” 하셨다. 고로 보낸 자를 통해 전능자를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그 리해야 된다.

14.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이 쓰셔도 역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그 사명과 권세가 다르다.)

15. 성자 주님은 인식관 대로 입력하신다. 하늘에도 삼위일체가 계시고, 땅에도 삼위일체의 대상이 있다. 그 대상은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는 구약 성부시대 - 신약 성자시대 - 성약 성령시대다.

16.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생각이 같으면 쉽게 금방 통하게 된다. 마치 주파수가 맞으면 바로 방송이 나오듯이,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도 바로 통한다.

17. 천국은 빛이 권세다. 빛이 강할수록 권세가 있다. / 빛에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빛에 가까이 가면 강한 빛 때문에 밀려나서 못 보고 가까이 못 간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도 빛이 너무 강하여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18. 키 180cm의 세계적인 팔방미인이 있다 하자. 그런데 10cm로 사진을 작게 찍어 보여 주면, 보는 자들마다 “별 볼품이 없다. 별로다.” 한다. 그런데 30cm로만 크게 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야, 멋지다. 엄청 예쁘다. 누군지 몰라도 아름답다.” 한다.

19. 같은 말씀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깔짝거리고 작게 전하면, 아무리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과 선생을 증거하더라도 별로다.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증거자를 통해서 증거를 들어야 제대로 알고, 선생도 증거자를 통해서 증거를 들어야 제대로 안다.

20. 10m짜리 돌도 눕혀서 쌓으면 “앉기 좋다.” 하고, 세워서 쌓으면 “웅장하다. 걸작품이다. 저 웅장한 돌에 어찌 감히 앉을 수가 있느냐.” 한다. 말씀도 그러하고, 시대 인물도 그러하다.

21. 시대 사명자 증거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이 시대에 한 일을 제대로 크게 증거해 보아라.

<2012년 5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에게 네 것을 다 빼 주더라도 네 ‘간’은 빼 주지 말아라. 그러면 너 죽는다.
2. 간뿐 아니라 빼 줘서는 안 될 것들이 많다. * 여기서 ‘간’이란, ‘깊은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3. 다 빼 줘도 네 깊은 비밀을 빼 주지는 말아라. 네 깊은 비밀을 아는 자가 마음이 변질되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말해 버린다.
4. 자기 비밀 이야기를 해 주면, 그가 마음이 안 변하더라도 자랑하려고 이야기한다.
5. 자기 간, 곧 자기 근본 비밀은 오직 자기의 구원자에게만 이야기하여라. 그는 변함이 없다.
6. 자기 구원자에게 간도 안 빼 주고 깊은 비밀도 안 빼 주면, 자기가 구원자를 믿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잘못했을 때 용서도 안 해 주고 구원도 제대로 안 시켜 준다.
7. 보이는 구원자는 하나님과 성자가 그 욕신을 쓰고 행하니, 비밀을 알면 결국 전능자에게 말할 것이다.
8. 사람과의 ‘정’ 때문에 사망길로 같이 따라가게 된다.
9. 인정사정 다 끊어야 사망길로 안 가게 된다.
10. 친구 따라 지옥에 가는 자들도 있다.
11. 자기 친구나 애인이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사명자를 믿다가 안 믿으니, 그와 친구이고 애인이니까 그 사람과의 정과 사연과 사랑을 못 끊고 그를 따라서 지옥에 간다. 미련함이 사망이고, 무지가 지옥이다. 사망과 일체 되면 사망으로 간다. 죽은 시체를 따라가면 그 시체와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다.
12. 친구나 형제나 애인이 마음 변해서 전능하신 성자 주님을 떠나 세상 사망으로 간다고 따라가면 그와 똑같은 신세가 된다. 설득하여 사망으로 못 가게 하고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성자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로 돌이키게 하신다. 너도 성자 주님과 그 욕이 되는 사명자와 하나 되어 열심히 생명들을 구원하자.
13.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과 삼위일체가 세상에 보내신 사명자를 향한 정도 크고, 사랑도 크고, 섬김도 커야 자기 친구나 애인이 자기 책임을 못 하고 마음이 불편하여 불신하고 나가도 자기는 안 변하고 친구나 애인을 따라가지 않는다. 끝까지 성삼위와 보낸 자를 따라간다.
14. 전능하신 성삼위를 더 크게 보아라. 근본으로 일체 되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친구나 애인이 가다가 변하여 생명길에서 벗어나면 같이 따라 나간다. 이는 자기 부모를 따라 살다가 부모가 죽으니, 부모를 너무 좋아하여 같이 죽는 길을 가는 자와 같다. 자기 애인을 사랑하며 살다가 애인이 죽으니, 사랑하는 애인을 따라 죽는 것과 같다. 미련하다. 고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 성자와 일체, 성령님과 일체, 시대에 보낸 사명자와 일체 되어 영원한 사랑을 하고 살아라.
15. 좋다고 흥분되어 자기 간 빼 주지 말아라. 또 나쁘다고 혈기 내고 미워하며 자기 똥도 빼 주지 말아라. 좋으나 나쁘나 간도 똥도 빼 주지 말아라. 오직 성자 주님과 그 욕에게만 사랑을 빼 주어라.
16. 꿈 이야기다. 그러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꿈 계시다. / 꿈에 사망의 세계인 악의 영계에 갔다. 어떤 힘센 한 남자가 자기 지역에 왔다고 나를 공격하며 죽이려 했다. 그래서 내가 그 남자의 목을 조르고 목을 비틀었다. 완전히 죽일 것인데 살려줬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네 땅에 왔어도 내가 나를 환영했으리라.” 했다. / 그는 다시 살아

나를 쫓아왔다. 나는 공중에 높이 솟아오르며 날랐다. / 어느 정도 그 지역을 빠져 나와서 공중에서 쳐다보니 그 높이가 또 쫓아왔다. 그는 산짐승 한 마리를 잡아 왔다. 내가 그에게 “내가 너를 죽이려다 살려 줬으니 너도 내가 잡은 짐승을 살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했다. / 그는 자기가 잡은 짐승을 살려 준다고 하며, 나를 보고 그 짐승을 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놔두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잡은 짐승을 내게 건네주면서 나를 해하려 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네 놈 마음을 아니, 그냥 내게 가까이 올 것 없이 네 손에 있는 내가 잡은 짐승을 살려 주 어라.” 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잡은 짐승을 땅에 슬쩍 놓고 나를 쳐다봤다. / 나는 그 지역에서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산과 들을 지나서 나오다 꿈을 꾀었다. 꿈에서 나의 영이 간 지역은 지하 터널을 다니는 열차가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싣고 다녔다. 그곳에 사는 영들의 삶의 물건들이었다.

17. 영계에서는 사탄도 날고 자기도 난다. 영들이나 영적 현상에서는 공중도 다닌다. 자기 육이 의를 행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의의 날개를 달게 되어 꿈에서 잘 날아다닌다.

18. 자기 육신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꿈에 모든 것이 보인다.

19. 사람에게에는 저마다 수호천사가 있다.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다. 그 천사들이 늘 자기 옆을 지키며 함께한다. 꿈에도 생시에도 천사들은 잘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사명이기도 하다. 깊이 기도하고 신령할 때는 보이기도 한다. 안 보이지만 말을 하면, 자기 영급과 실력대로 자기 수호천사와 대화할 수 있다.

20. 한번은 기도 중에 보니, 천사가 옆에 있었는데 기도 그릇에 내 기도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천사를 보고 이야기하니, 천사가 말하기를 “어서 기도해야지요.” 했다.

21. 중국 육에서 있을 때였다. 내가 영국에 있으면서 전도하러 다녔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국에는 사람이 없으니 전도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 그 후 어느 날 외국 여자들의 영 5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대화를 했다. 그들은 영국에서 왔다고 하였다. 나는 그 영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절대 나를 믿어 주고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 변하지 말고 살자고 했다. 저 하늘의 스타가 되어 변치 말고 살자고 했다. 그랬더니 정말 그리하겠다고 약속하고 갔다. / 그때 영국에는 실제로 전도된 자가 없었다. 그 후 한국에 와서 계속 영국을 위해 기도했다. 그때부터 생명들이 전도되었는데, 중국에서 봤던 영들의 육체들이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스타가 되었다. 영을 위해 기도하고 영들을 불러 전도하면 실제 육계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들이 계속 전도하여 그같이 역사가 변져 나간다. 실제 그들의 육을 면회로 대면해 보았다.

22. 기도하고 성자 주님과 함께하여라. 우리는 성자의 육이 되어 행해야 된다.

23. 사람이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간을 빼 주고, 기분이 나쁠 때는 상대의 간을 빼 간다.

24. 자기가 기쁠 때는 선을 넘어 자기 비밀을 말해 버리고, 화날 때는 참았던 것까지 선을 넘어 모두 말해 버린다.

25. ‘운전’은 기쁠 때나 나쁠 때나 잘 조종해야 사고 나지 않듯이, ‘인생’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조종하며 살아야 사고 나지 않는다.

<2012년 5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4월 3일 잠언 - 4월 11일 도착 * 성자 본체에 대한 입력, 인식관 (5월 9일 수요일 말씀을 듣고 이 129개의 잠언을 들으면, 어떤 것을 새롭게 입력하고 인식해야 하는지 이해가 빠르다.)

1. 입력과 인식관이다.

2. 성자 주님은 내게 입력해 놓고 인식시켜 주신 대로 나타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신다.

3. 성경에 게으른 것을 말할 때 비가 오고 집이 퇴락한 것으로 입력해 놓았기에, 성자 주님은 게으른 자에게 비가 오고 집이 퇴락하는 모습을 보여 계시하며 깨닫게 하신다.

4. 이같이 삼위일체의 성자도 우리 뇌에 이스라엘의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해 놓고, 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5. 성자 주님은 새벽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기도 시간을 '축구공'으로 입력해 놓으셨다. 시간을 많이 내서 기도하면 큰 공을 보이시고, 시간을 비교적 적게 내서 기도하면 작은 공을 보여 주신다. 주님은 입력한 대로 보이며 계시하신다. 삼위일체의 성자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해 놓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6. 입력과 인식관이다. 성자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어떻게 입력시키셨는지 알고 인식해야 계시를 본다.
7. 구약인과 신약인의 인식관은 다르다. 구약인들에게는 구약인 인물이 전하는 구약 말씀이 입력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이며 나타나 계시하신다.
8. 신약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님과 신약 말씀이 입력되어 있다. 고로 하나님도 성자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의 영체의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본 대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성경대로 삼위일체는 보이지 않는다. 고로 보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역사하셨다. 본체의 형상과 모양은 보여 주지 않으셨다. 모두 상징적으로 나타나셨다.
9. 나사렛 예수님도 상징이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습은 나사렛 예수님의 얼굴과 전혀 다르다. 다만 삼위일체 본체를 상징으로 보라고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신다.
10.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면, 성경대로 하나님을 봤거나 성자를 본 것이다.
11. 성경에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되어 있다. 성자는 입력해 놓은 대로 보이신다.
12. 사람들은 흔히 성경의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으로 인식한다.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다. 특히 신약 4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성자가 직접 설교한 내용으로서 성자의 계시록이다. 구약의 잠언서도 하나님의 계시록이다.
13. 인식을 잘못하면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인 줄 안다. 이 얼마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계시록들이 많다. 성경 말씀으로 나타난 삼위일체를 인식하고 알아라.
14.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삼위일체를 보도록 입력해 놓았기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삼위일체를 보는 것이었다. 삼위일체는 시대마다 그 시대 사명자의 모습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입력시켜 그를 통해 삼위일체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상징적으로 보게 하신다. '상징'이란, 삼위일체 본체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는 것을 말한다.
15. 계시란 지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것을 '계시'해 준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해 줬다는 것을 인식하여라. 성경 말씀 전체는 삼위일체가 사람을 통해 지시하신 것이다.
16. 가령 잠언에서 '인생은 허무하다.' 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계시다.
17. 지금 이 순간 내가 쓰고 있는 이 잠언도 성자께서 새벽에 잠을 깨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신 계시다. 나는 지금 성자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흔히 요한계시록만 계시로 인식하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다.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의 계시다.
18. 계시 중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개인 계시가 있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고 후대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계시는 당대에 쓰고 끝나지만, 후대는 이를 거울로 삼는다.
19. 설교도 계시다.
20. 성자 주님이 섭리의 계시자들에게 주는 계시도 개인 계시가 있고, 교회 계시가 있고, 섭리사에만 해당되는 계시가

있고, 민족과 세계에 해당되는 계시가 있고, 후대에 길이 보라고 주시는 후대를 위한 계시도 있다. 삼위일체는 계시를 주실 때도 사명자를 통해서 계시하신다.

21. 삼위일체는 성경을 통해 자기 뇌에 입력된 대로 보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만물로도 계시하시고, 사람으로도 계시하시고,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며 계시하신다. 성령님은 대개 감동으로 계시하신다.

22. 내가 계시를 풀어서 쓰니, 지금 성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시를 풀어서 쓰지 말고 계시대로 간단하게 써라. 나의 계시를 풀어서 써 놓으면, 풀어 준 그 한 가지만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 시대마다 각자 기도하여 자기 수준에 따라 성자 주님의 계시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다. 또 계시를 풀어서 써 놓으면 성약 성경 말씀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도 못한다.” 하셨다. 고로 나는 이제 성자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 해석과 토를 안 달고 주신 그대로 쓴다.

23. 성자 주님의 계시는 광범위하게 깨닫도록 계시하신다.

24. 인식을 작게 하고 있으면 큰 것을 줘도 작게 본다.

25. 시대 사명자를 본 것은 하나님과 성자를 본 것으로 인식하여라.

26. 시대 잠언은 사명자와 성자가 주는 계시임을 인식하여라.

27.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을 인식하여라. 천국과 낙원은 영계에서 지역도, 위치도, 해 놓은 것도 다르다.

28. 자기 애인과 자기 애인의 부모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여라. 천국과 낙원도 그러하다.

29. 낙원에서 천국에 가려고 목숨을 걸고 극적인 몸부림을 친다. 가 보지 않고서는 모른다. 가 보지 않은 자는 중도시를 수도권으로 알듯이, 낙원을 천국으로 안다.

30. 똑같은 계시라도 누가 주는 계시인지가 중하고, 누가 계시를 주는지에 따라 그 위력과 행함과 얻는 것이 좌우된다.

31. 자기가 자기에게 계시하기도 한다. 이는 자기 주관적 계시이며, 자기 의지 계시다. 자기 생각이 지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기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이다.

32. 사탄 마귀 귀신들도 계시하는데,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섞어서 계시하여 모르게 한다.

33. 사탄과 귀신의 영향을 안 받고 성자 주님의 계시를 받으려면 첫째, 성자 주님께 딱 붙어야 된다. 둘째, 자기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한다. 셋째, 성경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34. 자기를 수호하는 천사가 그때마다 주는 계시가 있고, 자기 영이 주는 계시가 있다. 자기를 수호하는 선한 영들이 계시를 줄 때도 있다. 필요한 것은 분별하여 받아서 쓰면 된다.

35. 자기 애인이거나 처자식이나 부모가 꿈에 계시해 주기도 하고, 성자 주님이 자기 애인이거나 처자식이나 부모의 모습을 보이며 계시해 주기도 하신다.

<2012년 5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시대가 바뀌면 인식을 달리해야 된다.

2.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기에 그들의 모습과 율법 말씀으로 하

나눔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입력되었고 인식되었다.

3. 신약시대부터는 그 인식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짝 바꾸었다. 고로 나사렛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인식하고 깨달았다.

4. 성약시대도 인식관을 바꾸려면, 마치 구약의 풍속과 제도를 신약의 것으로 바꾸듯 신약 식으로 입력된 것과 인식한 것은 다 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5. 신약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구약의 제도에서 못 벗어나 비늘 없는 생선을 안 먹고, 2000~3000년 전에 옛날 원주민 신앙인들이 행했던 것을 행하고 산다. 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6. 어떤 교파의 지도자는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면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돼지머리·소머리·각종 과일·떡 등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절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마치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지 않고 그 제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메시아 예수님을 벗어난 종교다. 구약 종교다.

7. 지금도 신약인들 중에서 구약 제도를 지키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는 자기 신앙의 차원이 신약권으로 제대로 못 올라왔기 때문이다.

8. 성약역사에 와서 살면서도 아직도 신약 제도를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 이는 자기 문제다. 자기가 아직도 신약권 차원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 나사렛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 5:17).” 하셨다. 완전하게 할 것은 완전하게 하고, 폐할 것은 헌 신과 헌 옷을 없애듯 다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하였다. / 정치도 바뀌면 새 인물이 나오고, 환경도 개발하면 같은 장소라도 이전과는 다르다. 건물도 다시 지으면 모양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9. 개인의 직위가 높아지면 호칭이 바뀐다.

10. 자기 뇌에 어느 시대의 것이 입력되어 있는지 보고, 고칠 것을 고쳐라. 시대는 새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옛것을 가지고 있느냐.

11. 새 시대로 와서 새 시대의 것으로 다 바꾸지 않는 자는 헤어스타일은 현대식, 옷 스타일은 옛날 식, 신발은 19세기 식이다.

12. 자기 삶이 어떠한지 꿈에서도 보여 주고, 말씀으로도 외치고 보여 주니 깨달아라.

13. 입력과 인식관이다. 입력된 대로 계시하고, 입력된 대로 깨닫는다.

14.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결혼하면 하와같이 예쁜 딸을 낳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는 하와에 대해 입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잘못된 입력은 잘못된 인식관이다.

15. 배워라. 배워라. 그래야 머리통의 거미줄이 없어진다. 6000년 전 하와는 원주민이다. 그 모습을 보면 놀라 넘어진다. 다시 입력하고 인식하여라.

16. “최고 좋은 집이다. 최고 좋은 차다.” 해서 보니, 집은 19세기 때 최고로 좋았던 양옥집이고, 차는 1970년대 나온 ‘pony’였다. 이와 같이 신약권에 사는 자들이 “저 좋은 낙원!” 하지만, 신약의 천국이 낙원이다. 낙원은 신약권 세계다. 가 본 자만 안다.

17. 자기 애인이 최고라고 하고, 자기 집이 최고라고 해도 더 좋은 것을 보면 인식관이 짝 뒤바뀐다.

18. 월명동 돌 조경을 만든 자가 돌 조경을 만들기 전에 평창동의 한 개인 집 조경을 보고 “세상에 이같이 멋있는 집이 있을까? 이같이 멋있는 조경이 있을까?” 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와서 그 후 2년 만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멋있게 조경을 만들었다. 삼위의 계시를 받고 그 구상을 보니 인식관이 뒤바뀌어 그와는 비교가 안 되는 작품을 만들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인식관이 뒤바뀐다.

19. 섭리인들은 더 좋은 말씀과 더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 시대 말씀을 전하고 보낸 자를 증거하여라. 시대 말씀과 시대 보낸 자는 구시대 말씀과 구시대와 비교해서 볼 때, 월명동 돌 조경과 일반 개인 가정집 돌 조경이 비교가 안 되듯 비교가 안 된다.

20. 1970년에 월명동에 새 집을 짓고 ‘이 같은 집이 있으랴?’ 생각하고, 온 동네를 다 다녀 봐도 그 같은 집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집을 잘 지었다고 하며 매일 구경하러 왔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로 갔다. 막상 서울에 가서 빌딩들을 보니 월명동에 멋있게 지은 새 집은 빌딩 앞에 화장실만도 못했다. 서울 빌딩의 화장실은 대리석과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되어 있어 흙은 콩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월명동 우리 집은 흙집이었다. 걸만 백회로 발라서 하얗다. 서울에서 빌딩을 보고 와서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알고 다시 짓기로 계획했다. 더 좋은 것을 보니 인식관이 뒤바뀌었다.

21. 서울에서 멋진 건물을 구경하고 온 후부터는 월명동 흙집을 구경하러 오지 못하게 했다. 서울에 가서 건물들을 구경하라고 했다. / 신앙 세계에서 구시대 신앙을 하는 자들은 자기 생각에 구시대 말씀이 최고라고 한다. 새 시대에 와서 새 말씀을 듣고, 와 보라고 외쳐라.

22. 자기 집 정원 조경이 최고라고 하는 자에게 월명동에 와 보라고 하여라.

23. 자기 말씀이 최고라고 하는 자에게 섭리사로 와서 성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 보라고 해라. / 자기 지도자가 최고라고 하는 자에게 우리 섭리사 지도자를 보여 주어라. 그가 행한 것을 다 말해 주어라. /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시대 말씀을 외치고 시대 보낸 자를 증거하여라.

24. 자기 교회가 크다고 하는 자에게 섭리사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 주어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리가 아프도록 구경시켜 주며 같이 걸어 줘라.

25. 자기 손과 마음에 가시가 박힌 자에게 자기 죄와 시대의 죄로 가슴과 머리에 못 박힌 자를 보여 주어라. 그리고 이 시대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인지, 역사를 가르치며 때를 알려 주어라.

26. 성자 본체와 나사렛 예수님과 시대에 보낸 자를 쪼개어 생각하고 제대로 인식하여라.

27. 시대 보낸 자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자를 모르면 소용없다. 아는 대로 그의 능력과 사랑의 힘을 받는다.

28. 보낸 자와 일체 되고, 누가 그를 보냈는지 알고 근본자와 일체 되어라.

<2012년 5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다고 인식하고 사는 자는 평생 여자를 약하게만 생각하고 대한다.

2. 2분 동안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가 더 말을 많이 하는지 보아라.

3. 오뉴월에 여자와 남자 중에서 누구에게서 더 찬 서리가 많이 내리는지 보아라.

4. 여자와 남자 둘 다 개성대로 강하지만, 여자가 사랑에 강하니 정신도 강하다.

5. 여자나 남자나 누가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강한 것이 달라진다.
6. 의인도 죄인으로 인식하면 죄인으로 보인다.
7.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제일 작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체 사람들을 다 확인하니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제일 컸다. 그같이만 생각한 나의 인식관이 문제였다.
8. 실체보다 더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더 작게 생각할 것도 없다. 다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인식하면 자기 손해다. 잘못된 인식관을 고쳐라. 뇌의 메모리를 바꿔라.
9. 오해는 잘못된 인식관에서 온다.
10. 전능자도 성자도 사람의 인식관대로밖에 역사하지 못하신다.
11. 나를 작다고 인식하는 자에게 크게 역사할 수도 없고, 크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좁은 인식관의 그릇만큼만 들어가니 크게 역사해도 소용없다.
12. 불가능하다고 인식한 자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13.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인식관이 차원 높이 뒤바뀐다.
14. 높은 산에 물이 없다고 인식하면 높은 지역에는 아예 샘을 안 판다. 월명동은 해발 350m 고지다. 그 높은 지역도 파니 물 천지다. 그래서 호수도 만들었다.
15. 백두산 해발 2744m다. 물 바다다.
16. 성경에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과일 먹고 타락했다고 하니, 어떤 미련한 사람은 과일을 먹을 때마다 꺼리며 먹는다. 어떤 미련한 종교는 아담과 하와가 천도복숭아를 따 먹고 타락했다고 하며, 천도복숭아나무를 다 베어 버리기도 했다. 미련하면 미리 죽는다.
17. 그릇된 인식관으로 인해 걱정, 근심하게 된다.
18. 그릇된 인식관은 자기를 죽이고 남도 죽인다.
19.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사는 자는 누가 고쳐 주지 않으면 녹이 쓴 뇌로 계속 그같이 생각하다가 죽고, 그 영도 영원히 죽인다.
20. 인식으로 마음도 병들고 육도 병든다.
21. 인식으로 서운함과 섭섭함이 온다.
22.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걸리는 말들이 많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그것을 자기 뇌에 메모리 하지 말고 인식하지 말고 귀 막고 가라!
23. 오직 전능자, 오직 성자, 오직 성령의 인식관을 가져라. 기도하여 지울 것은 다 지워라. 지울 것은 뇌에서 지워야 된다.
24. 전능자를 새 머리로 인식하려느냐.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자의 신이 임하도록 온전히 인식하여라.

25. 구원자를 제 머리로 인식하느냐. 그럼 너 자신이 너를 구원하지 왜 구원자를 좇느냐.

26. 성자 본체를 제대로 인식하니 매일 매시간 성자와 통한다. 성자 본체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로 아주 뇌에 입력했다. (다시 말하면, 성자 본체는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인 것을 확실히 입력했다. 사람의 육이 태어나면서 같이 태어난 영은 그 사명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태초부터 존재하시고 성부와 성령과 동등 격이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쪼개서 보고 제대로 인식하니 성자 주님과 매일 매시간 통한다.)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부인 잘못 만나면 남자는 망한다. 잘 만나면 흥한다.

2. 애인 잘못 만나면 망한다. 겉 보고 좋아하지 마라. 속은 시궁창이다.

3. 겉 보고 건성으로 확인하고 별로라고 하지 마라. 속에는 성자의 성품과 인생 보화와 큰 것이 들어 있다.

4. 자기가 따르고 섬길 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 망한다. 잘 만나면 천국까지 데려간다.

5. 성자 주님을 잘 만나야 인생 영원히 성공한다.

6. 성품이 못된 자는 오늘도 지옥사자가 지옥의 것이라고 하며 찾으러 다닌다. 인물 안 보고 성품만 본다.

7.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지옥사자가 어떤 여자를 잡고서 말하기를 “너는 성품 못돼서 지옥에 온 것이다.” 했다. 그러니 여자가 하는 말이 “얼굴과 몸이 이같이 아름다운데, 너는 뵈는 것이 없냐? 안 보이냐?” 했다. 지옥사자가 말하기를 “지옥에는 네 영을 갖다 넣는다. 육은 내가 늙도록 죽을 때까지 살아.” 했다.

8.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지옥사자가 성품이 못된 자를 잡으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부르면서 못된 성품을 다 회개하고 즉시 고친다고 했다. 눈을 떠 보니 악마는 가고 천사만 보였다.

9. 성품이 천품 돼야 천국 간다.

10.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김치국 마시고 있다.

11. 폭력배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가 양의 탈을 쓰고 말하니 좋은 사람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그냥 나타나면 발각되니 자기를 좋게 인식시킨다. 사기꾼도 그러하다.

12. 무신론자들은 ‘야망의 정신’으로만 희망에 차서 산다. 실제는 그렇게 안 된다. 그들의 수고는 모두 헛되다.

13. 전능자가 창조하신 귀한 생명들인데, 무기를 만들어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도 멸하시고 그 영혼도 지옥으로 보내어 멸하신다.

14. 사탄과 악인들의 영향을 받아 불법의 사상에 젖어 사는 자들도 같이 망한다.

15. 평화롭게 살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모두 멸망시키신다. 사명자가 기도하여 이미 결정했다.

16. 삼위일체의 성자 본체는 시대 사명자의 육을 쓰고서 악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17. 죄가 무섭고 심판이 무서운 것을 깨달아라.

18. 돌도 값없이 인식하고 사는 자는 수억짜리 돌이 길가에 있어도 관심이 없다. 옆 사람이 돌을 주워다 팔아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봐야, 그제야 돌을 금같이 귀히 본다.
19. 나무는 작아도 귀하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나무에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
20. 사람이 천하다고만 보다가는 인간 보화 못 찾는다.
21. 배워야 알고, 배워야 스스로 인식관이 뒤바뀐다.
22. 무지는 무지의 인식관 속에서 산다.
23. 인식이 그릇된 자는 아무리 제대로 이야기해도 이상하다고만 한다. 그러다 자기 인식으로 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제야 깨닫고 돌이킨다.
24. 인식관대로 보인다.
25. 죄의 행실을 의의 행실로 인식한 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지으며, 악을 의로 생각하고 악을 행한다.
26. ‘공의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진리의 말씀이다.
27. 자기가 이성의 범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의 생활로 안다.
28.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떠나고 그 주관권을 떠나서 행한 것이 죄다.
29. 똑같은 행위라도 누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하고, 삶의 생활의 행동이 되기도 한다.
30. 사랑도 억지로 무력으로 한 것은 그 사람에게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31. 서로 좋아 사랑했어도 전능자가 인간에게 준 법을 벗어나 사랑했으면 이성 범죄가 된다.
32. 술과 마약에만 알코올 성분, 마취 성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술과 마약을 먹어야만 그 성분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에도 다 들어 있다.
33.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거의 다 술과 마약 성분이 조금씩 들어 있다.
34. 과일에만 비타민 A, 비타민 C가 있지 않다. 채소, 나무, 물, 고기, 각종 만물에도 있다.
35. 자기 머리에 나쁜 것이 인식된 자는 나쁜 것만 행하게 되어 해됨이 쉬지를 앓는다.
36. 어떤 자는 귀신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귀신이 없어지게 해 달라고만 기도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니 상처가 난 곳에 세균이 침범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었다. 소독하고 약을 바르니 바로 나았다.
37. 어떤 자는 몸의 한쪽이 썩어 들어가니 이같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늘 병원에 가야지 생각하다 병원 가서 촬영해 보니 이상이 없었다. 귀신 마귀는 엑스레이에 안 나온다. 결국 기도하여서 나았다.
38. 잘못 인식하면 잘못 간다.
39. 인식한 대로 행해진다.

40. 모두 근본을 배우고 메모리와 인식을 고치는 일 먼저 하여라.

<2012년 5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4월 11일 도착

1. 쪼개서 봐야 한 단계 깊이 본다.

2.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선지자들이나 중심인물들에게 그때그때 강림하여 역사하며 뜻을 펴셨다.

3. 신약시대 때는 삼위일체의 성자, 곧 구원의 영이 강림하시어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며 뜻을 펴셨다.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구원역사를 펴므로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온다.’라고 한 예언이 성취됐다. 예수님은 성자가 임하였기에 구세주가 되었다. 신약시대 구세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는 사명이 달랐다. 또 예수님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모세 때와 시대도 달랐다. / 성자는 4000년 구약역사를 끝내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 무너진 하늘의 역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오셨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리라.” 했다. ‘구약의 무너진 하늘의 촛대를 일으키리라.’ 한 말이다. 하늘의 성자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쓰고 무너진 하나님의 촛대를 일으켰다.

4. 구약은 무너진 역사였고, 신약은 성자가 예수의 육신을 쓰고 와서 일으킨 역사다. 고로 신약역사는 처음부터 성자가 예수의 육을 쓰고 해 주는 역사였다.

5. 신약과 성약은 구원역사의 차원이 다르다. 성약은 완성하는 역사로서 땅에서 성자를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책임을 해야 비로소 성자가 그 사람의 육신에게 임하여 신부 역사를 펴신다.

6. 남자가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짝사랑에서 끝난다. 하늘은 남자 격이요, 땅은 여자 격이다. 신부 시대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역사로서,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과 성자를 찾고 신부로서 갖춰야 한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시고 그 마음에 합당하면 그를 신부로 부활시키시고 성자가 그 육신을 쓰고 임하여 성약 신부 역사를 펴 나간다.

7. 재림 때 신부로 첫 부활한 자는 마치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이 성자의 육이 되어 역사를 펴 나갔듯 성자의 몸이 되어 이 시대 새 역사, 곧 성약 재림역사, 신부 역사를 펴 나간다.

8. 신약역사는 넘어진 구약의 촛대를 일으키는 기간이라서 책임분담이 없는 어린이 역사다.

9. 성약역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신부 역사라서 책임분담 역사다. 땅에서 하늘의 신부가 될 자가 먼저 신부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과 성자의 마음에 들어야 성립되는 역사다.

10. 성약역사는 너무 좋지만 책임이 큰 역사다. 성약역사 때 성자의 대상, 곧 성자의 육은 땅의 구원자이며 역사의 주인이라서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 고로 20년 동안 오직 기도만 하고 주님께만 배우며 이 시대 성자의 대상으로서 조건을 세운 것이다.

11. 조건은 세울 때 성자 주님은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려고 신부를 뽑는다. 재림 때는 이런 일이 있다.” 하며 사전에 일절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주셨다. 미리 이야기해 주고 답을 주고 뽑으면, 뽑아도 제대로 닮이지 않아서 성자의 마음에 들게 쓸 수 없기 때문이다.

12. 한 남자가 같이 살 여자에게 “나 황태자다. 나와 결혼하려면 이런 것을 갖춰라.” 하면, 여자가 억지로 갖추기에 나중에 데리고 살아도 제맛이 안 난다. 그리고 여자는 처음처럼 항상 남자가 먼저 가르쳐 주고 말해 주고 사랑해 줘야 사랑하게 되니 만족이 없다. / 자연적이어야 하는데, 억지로 꺾어서 만든 돌이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자연적이지 아니라 꺾어서 만들었네.” 하며 가치를 안 쳐 준다. 이와 같이 자기가 깨닫고 만들어 하나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단계까지

가야 시대 하늘의 대상이 된다.

13. 스스로 깨닫고 사랑하는 자는 최고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자요, 미의 대상자가 되어 늘 주체를 기쁘게 해 주는 자가 된다.

14.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있으니 '지구'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과 공전을 하며 스스로 존재하니 최고다. 태양도 스스로 산소를 태우고 빛을 발한다. 고로 신부 같은 지구와 태양이다. / 스스로 깨닫고 행하는 여자도 남자 앞에 지구와 태양 같은 최고의 신부다. 그 사람은 성자의 태양이며, 성자 앞에 지구 같은 존재다.

15. 성약역사 때 땅에서 성자의 최초의 신부가 된 자는 스스로 깨닫고 알고 행하여 성자의 대상이 되었다. 고로 성약역사의 뜻을 능히 펴 나가는 것이다.

16. 성약역사의 신부라면, 스스로 성자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재림 때 성자의 육신도 그같이 대해야 된다. 성자는 보낸 자로 말미암아 성약 구원역사, 성약 휴거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다.

17. 스스로 하는 자는 진실로 행하는 자다. 최고의 뜻을 아는 자다.

18. 시켜서 하고 남에 의해서 하는 자는 엔진 없는 기구나 차와 같다.

19. 스스로 행하는 자는 자기 홀로 존재시키는 자다.

20. 스스로 하는 자는 넘어져도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다. 고로 멸망하지 않는다.

21. 성자 본체 영은 세상 구원역사를 하시면서, 오직 그 시대에 표상자 한 사람을 뽑아서 그에게 임하여 행하신다.

22. 무너진 구약의 촛대를 세우기 위해 신약 때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과 영에게 임하여 2000년 동안 신약 역사를 펴 나갔고, 마지막 완성기 성약역사를 펴기 위해 성자 본체는 또 재림하여 시대 사명자의 육과 영에게 임하여 1000년 동안 성약역사를 펴 나간다.

23. 천지와 인생을 창조하신 자는 삼위일체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대상체인 천모 성령님, 그리고 아들 격인 성자이시다.

24.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 격이고, 성령님은 가정의 어머니 격이고, 성자는 가정의 자녀 격이다. 이 삼위일체는 동등체요, 개성체다. (일체이면서, 각 위로 존재하시며 각각 행하신다는 말이다.)

25. 성경에서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선지자들이나 중심인물들에게 많이 나타나 일하셨다.

26. 삼위일체의 성자는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구원역사'를 맡아 행하신다.

27.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며, 그의 영체다. 성자 본체는 볼 수가 없다. 성경을 보면 누구도 성자 본체를 본 자가 없으니, 기록이 없다.

28. 나사렛 예수님의 영체와 성자 본체는 다르다. 성자 본체는 창조자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요, 삼위일체의 한 존재자로서 하나님과 동등 격인 전능자이시다.

29. 창조주의 창조 원리대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 하나, 영체 하나다. 육체가 생길 때 그로 인해 영체가 같이 생긴다. 마치 밤송이가 생기면 진액이 밤송이를 통해 모여들어서 알밤이 생겨 크는 격이다.

30. 나사렛 예수님도 역시 육체 하나, 영체 하나다. 그 위에 삼위일체 성자 본체의 영이 잉태되었을 때부터 함께하셨

다. 무너진 구약의 촛대를 세워야 하니 잉태의 시작부터 임하여 함께하셨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그 욕을 쓰시니 구세주가 되었고, 그 욕이 죽은 후에는 그 영을 쓰시니 신약 영계에서도 구세주로 쓰인다.

31. 우리는 기도 중에 나사렛 예수님의 욕과 영의 모습을 기본으로 해서 성자를 상징적으로 보면서 살았다. 지금도 그 욕과 영의 형상을 표준 하여 성자가 나타나신다. 그러나 모습만 그렇게 나타나실 뿐이지, 재림 때는 재림시대 사명자의 욕신을 쓰고 나타나 성약 재림말씀을 전하시며 성약역사를 펴 나가신다.

32.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그와 일체 된 삼위일체 성자가 오시고 대답하신다. 지금도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로 인식하고 있기에 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33. 성자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격이고, 나사렛 예수님은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 된 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 위에 성자가 강림하여 행하셨다. 성자 본체의 영과 나사렛 예수님 영은 다르다. 초림 때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욕신을 쓰고 오셨듯이 재림 때도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 본체가 다시 오셔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사명자의 욕을 쓰고 행하신다.

34. 나사렛 예수님은 자체적으로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다. 성자가 그 몸에 강림하여 메시아가 된 것이다. 인간으로 스스로 커서 스스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나 그 위에 성자가 강림하셨기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면서 나타났다.

35. 성자 본체가 강림한 사명자의 욕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 '말씀'으로 알아본다. 사람의 욕이 중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에게 왔느냐가 중요하다. 성자 본체는 삼위일체로서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통해 "다시 온다." 말씀하신 대로 재림 때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도 신약 때같이 욕신 쓰고 오신다. 그 욕은 이 시대에 신부로서 예비하고 조건을 세워 준비된 자다. 성자가 사명자의 욕에게 임하면, 그를 통해 성자가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 성자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심판도 하신다.

36. 신약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성자가 예언하신 대로 삼위일체는 성약시대 때 모든 뜻을 다 이루신다. 땅에서 시대 사명자를 통한 욕적 휴거 역사도 이루고,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성자 본체가 직접 오는 영적 휴거 역사도 이룬다.

37. 다른 자들과 똑같은 욕신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그 몸의 가치와 사명은 다르다.

<2012년 5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나면 삼위일체의 성자가 나타나신 것이다.

2. 성자 본체는 하나님처럼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그 본체를 나타내지 않으셨다.

3.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그 욕체에서 난 영체다. 성자 본체는 하나님 격인 영체로서 사람의 영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 격인 성자 본체의 영과 인간의 영인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쪼개서 보아라. 욕체에서 난 영체는 인간의 영이다. 성자는 인간의 욕체에서 난 영이 아니다. 하늘에서 스스로 존재한 삼위의 전지전능하신 영체이시다.

4.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땅에서 일하려면 욕신을 쓰고 나타나셔야 된다. 이는 천륜의 법칙이다. 전능하신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욕신을 쓰고 행했기에 그 욕신이 메시아가 된 것이다.

5. 한 시대 한 인물이다. 신약시대 때 성자 본체가 쓴 예수님 한 인물, 성약시대 때 성자 본체가 쓰는 시대 사명자 한 인물이다.

6. 삼위일체의 성자 본체가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의 욕을 쓰고 행하시며 "내가 다시 온다." 하시며 재림을 약속하셨고, 또 욕으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 부활한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온다." 하셨다. 재림 때 그 성자 본체가 다시 시대 사명자의 욕신을 쓰고 오셨다.

7. 구약과 신약은 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배가 달랐다. 이는 한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이 육으로 쓰시는 중심자가 달랐다는 말이다. 배가 다르니 구시대에 있는 자들이 새 시대로 온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가 된 것이다.
8. 이와 같이 신약과 성약도 배가 다르다. 초림 때도 성자 본체가 오셨고, 재림 때도 성자 본체가 오셨다. 다만 그 육신으로 쓰는 중심자가 다르다. 고로 구시대에 있는 자들이 배가 다른 새 시대로 온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원수가 된 것이다.
9. 예수님 때도 배 다른 자, 곧 족속이 다른 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이 시대도 배 다른 자, 곧 족속이 다른 자들이 시대 사명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여 시대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다.
10. 한 성자를 믿어도 신앙의 족속이 다름을 모두 알아라.
11. 만일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선생의 육을 쓰고 일했다면, 지금도 신약인들에게 수없이 계시하여 성약역사로 이끌고 왔을 것이다. 초림 때 성자의 몸인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 주관권 세계의 메시아다. 모세는 구약 주관권 세계의 메시아 격이다.
12. 성약역사 때는 성자가 다시 재림하셨다. 신약 2000년 기간 동안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통해 자녀급으로 부활되어 성자와 일체 된 자들의 영들에게는 역시 영계에서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통해 재림 말씀을 주시며 휴거 준비를 시키신다. 신약인들도 육신은 죽었으나 신약급 영계에서 자녀로서 성자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며 천사장이 나팔 불 때를 기다린다. 그때 100% 자녀로 온전히 준비된 영들만 성자의 재림을 맞아 휴거되어 신약권 천국에 간다.
13.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영과 함께 구원역사를 펴 왔기에 영계에서 휴거될 자들을 가르쳐 온전히 자녀의 영으로 갖추어 성자의 재림의 날 휴거되게 한다.
14. 성약역사가 시작되고 땅에서 육으로 육적 휴거를 이루다가 바로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을 맞아 영으로 영적 휴거를 이루니, 성약세계에서는 휴거되는 자들의 수가 많지 않다.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이 일어난 후에도 앞으로 땅에서 1000년 동안 성약역사가 펼쳐져 나간다. 그러나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이 일어난 후에 태어나 성약역사로 온 자들에게는 1000년 성약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적 휴거 역사는 없다. 하지만 육신이 성약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을 데리고 땅에서 이루는 육적 휴거 역사는 1000년 동안 진행된다. 그 영이 하늘나라 혼인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해도 땅에서 시대 보낸 자를 받아들이고 성자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역사는 한다. 다만 성약역사 기간 1000년이 다 될 때까지 신부 주관권에서 신부로서 존재해야 된다.
15.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재림할 때, 땅에서 신부로 100% 변화된 영들은 성약권 천국, 즉 성약성에 모여 살게 되고, 땅에서 자녀로 100% 변화된 영들은 낙원을 벗어나 신약권 천국에 모여 살게 된다. 성약권 천국에 같이 가더라도 그 공적에 따라서 또 위치가 달라지고, 신약권 천국에 같이 가더라도 그 공적에 따라서 또 위치가 달라진다. / 천국은 우주같이 크니 각각 해당되는 대로 맞춰서 배치하여 살게 하신다.
16. 성약권 천국에 못 온 영이 신약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성약권 천국으로 휴거되지 못했으면 아예 영이 휴거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신약권 낙원에서 영으로 성약 말씀을 듣고 행했더라도 신부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공적으로 신약권 천국에 가서 더 좋은 위치에 거하게 된다.
17. 성약성은 하나님 보좌에 제일 가까이 있다.
18. 아담 후 4000년까지가 구약역사이고, 구약역사 후 2000년까지가 신약역사로서 나사렛 예수님 주관권이다. 신약역사 후 성자 본체가 재림하고 1000년까지 재림 주관권 세계다.
19.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알아야 성약 1000년 역사 기틀을 놓고 역사를 편다.” 하셨다.

20.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권의 구세주다.

21. 하나님은 성자를 ‘독생자’라고 하셨다.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은 형제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자 본체를 말한 것이다. 초림 때 성자가 아들 격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의 육을 썼기에 성자 본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것이다.

22. 성약역사 때는 성자가 차원을 높여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로 준비된 자의 육신을 쓰시고 신부 역사를 이루신다. 성약 때 성자의 육은 신부의 표상이요, 신약 때 성자의 육인 나사렛 예수님은 아들의 표상이다. 성약역사는 신부 역사요, 신약역사는 아들 역사다.

23. 삼위일체의 성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그 육이 태어날 때 난 영으로서 그 영도 그 육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아니다. 그는 삼위일체 신이 아니라, 성자가 신약 때 성자의 육으로 삼고 메시아로 택한 자다.

24. 땅에서 육신을 쓰고 태어난 영은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아니다. 삼위일체의 대상이다.

25. 아담 하와로 인해 사망권으로 얹어져 구약 4000년 동안 종급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아들급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그 육을 통해 신약 아들 역사를 펴 나가셨다.

26. 무너진 구약역사를 다시 일으켜야 하니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어, 그 위에 성자가 임하셔서 신약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

27. 나사렛 예수님은 모세와는 다르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 몸을 쓰셨으나 구약 때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중심인물들 중의 한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로서 단 한 사람이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아들이다.

28. 신약 때 성자의 몸과 성약 때 성자의 몸도 다르다. 같은 성자가 오셨으나 시대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약의 넘어진 촛대를 세우는 일과, 일어난 자들을 마지막으로 신부로 삼아 역사를 완성시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29. 쓰러진 과일나무를 일으킨 것과, 과일나무의 최고의 목적인 열매를 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30. 시대마다 삼위일체가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되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다.

<2012년 5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육이 안 하면 자기 영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2. 영계에서 내 영이 가야 할 길을 가는데, 누가 못 가게 막았다. 이때 내 육신을 보니 잠자고 있었다. 육이 잠을 자며 가만히 있으니, 영도 갈 길을 못 가고 있는 것이었다. 육의 행위에 따라 영이 가는 것을 허락한다.

3. 성삼위는 인간의 영과 육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만 그 영이 천국에 가게 하셨다.

4. 신약 때는 성자가 주체성으로 역사를 펴셨고, 성약 때는 성자가 상대성으로 역사를 펴신다.

5. 신약 때는 ‘성장의 때’라서 성자가 처음부터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역사를 하셨고, 성약 때는 재림 때로

서 ‘완성의 때’라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그 상대체인 사랑의 대상, 곧 신부를 놓고, 그를 육신으로 쓰고 그와 함께 역사를 펴신다.

6. 신약 때는 남자 혼자 하는 입장의 역사였고, 성약 때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여 여자와 함께 역사를 펴는 입장의 역사다.

7. 성삼위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의 육신과 마음과 영이 성삼위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고 천국에도 가게 하신다.

8. 사람들은 흔히 말하길 “하나님과 주님께 기도해도 왜 자기에게 오는 사탄 마귀 귀신을 안 쫓아내 주십니까?” 한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각자 자신과 함께 사탄 마귀 귀신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고 계신다.

9. 근본적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해야 된다.

10. 사람들이 사탄에게 당하고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이 사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같이 생각된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러나 인간이 제대로 못 해서 자기 것을 못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가 제대로 해야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성령님이 다스리신다.

11. 제대로 해야 다스린다. 못 하면 못 다스린다.

12. 세상만사도 제대로 해야 이루어지듯이, 인간이 성자 주님과 함께 제대로 해야 만사의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진다.

13. 크다고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작다고 가벼워서 나는 것이 아니다. 크나 작으나 하늘을 날게 창조해 놓았기에 난다.

14. 지구는 무겁고 커도 우주에서 날고, 돌은 작아도 땅에서도 못 난다.

15. 별들은 우주에서 난다.

16. 날아다니는 주관권에 가야 날아다닌다.

17. 새들은 날개로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사람은 다리로 땅에서 날아다닌다.

18. 마음은 삶에서 날아야 된다.

19. 새벽은 날아다니는 시간이다.

20.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과 안 보이는 천국과 영의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날아다니시며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21.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며 다스리시고 날아다니신다.

22. ‘난다’는 것은 ‘제재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23. 날짐승이 날면서 살듯이, 인생도 각 분야에서 날면서 살아야 된다.

24. 혼자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날면서 사는 자가 있고, 자기를 창조하신 전능자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와 함께 살아 날면서 사는 자가 있다.

25. 인생은 창조주의 계획대로 살면서 육으로 날고, 정신으로 날고, 영으로 날고,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살면서 날아야 최고로 위대하게 날면서 사는 자다.
26.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 주님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인생을 날면서 살지 못한다.
27. 같은 지역에서 살아도 인생을 날면서 사는 자, 걸으면서 사는 자, 기어 다니면서 사는 자 각양각색이다. 그 삶을 살기까지는 모른다.
28. 육계도 영계도 천층만층의 삶이다.
29. 천국도 삼위일체 안에서 같은 족속, 곧 같은 구원급의 영들끼리 지역도, 위치도, 삶도 다르게 쪼개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다.
30. 구약인과 신약인과 성약인은 천국에 가도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지 않는다. 세상에서 자기 육을 통해 받은 구원의 수준이 다르기에 그 영도 천국에서 살 때, 구원받은 급에 따라서 자기 취향과 자기 생각에 맞는 곳으로 쪼개져 살게 하셨다.
31. 쪼개서 사는 천국이다.
32. 지상에서도 자기 취향대로 쪼개서 자기 천국을 만들어 산다.
33. 자기가 좋다고 남까지 좋은 천국이 아니다.
34. 배우자를 택할 때도 자기 취향, 자기 만족, 자기 미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택하여 천국을 만들어 산다.
35. 어떤 사람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춤도 추고, 이성으로 취해 사는 자를 좋아하여 자기 애인으로 삼고 천국같이 여기며 산다.
36. 어떤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을 좋아하며 천국처럼 산다.
37.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육계에서 자기 육의 삶도 형성되고, 영계에서 자기 영의 삶도 형성된다.

<2012년 5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영원히 가도 이상 없는 곳이 최고의 천국이다.
2.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로 행하며 천국같이 산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난 삶은 가다가 병들고, 약해지고,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깨져서 더는 못 한다.
3. 정상적인 것만 오래 지속되며 기쁨을 누린다.
4. 인간을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무기를 만들고 그것에 혈안 되어 사는 개인과 민족은 그것에 중독되어 천국같이 산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의 법칙과 평화를 깨뜨린 반역자로서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자신들이 먼저 스스로 파괴되어 존재하지 못한다.
5.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가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구원을 위해 세운 자를 데리고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

6. 그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사람이 세상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과 성자가 하시는 일이다.
7. 자기 애인이 어떤 동산을 사용할 테니 좋게 해 달라고 하면 같이 개발해 주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발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8.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악한 자를 두고 회개하여 선하게 해 달라고 하든지, 공의로 심판하여 없애 달라고 간구해야 하나님은 행해 주신다.
9. 사탄의 행위와 악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간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다스려 주신다.
10. ‘동물’도 식용도 있고 애완용도 있다.
11. ‘산의 나무’도 벌목할 나무가 있고, 남겨서 표상으로 두고 보며 사용할 나무도 있다.
12. ‘사람’도 쓰여짐이 다양하다. 고로 합당한 곳에 쓰여져야 자기에게도 주인에게도 더욱 기쁨이 된다.
13. 어떤 나무는 정원에 옮겨 심어 놓고 1000년 동안 보고 즐기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베다가 집을 지어 1000년 동안 사는 데 쓰기도 한다.
14. 주인이 보고 결정한다.
15. 나무를 어떻게 쓸지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다. 나무가 없는 곳은 나무를 가꿔야 되고, 나무가 많은 곳은 나무를 베야 된다.
16.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은 영의 세계로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이 와서 살기를 원하신다.
17. 최고 좋은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중에서도 자기 몸이 되어 살고 자기를 최고로 사랑한 자에게 주고 싶어, 그에게 주어 쓰게 하신다.
18. 세상의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전초로 사용하는 축소판으로 주는 것에 불과하다.
19. 천국의 것은 하나님의 대상체로 완전히 변화된 영들이 천국에 가서 누리기 때문에 세상의 것 정도로는 만족이 없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어야 만족한다. 영은 육보다 수만 배 눈도 높고 지능이 높다. 고로 하나님은 천국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20. 천국은 더 이상적인 것이 없는 최고의 보물로 건축했다.
21. 천국에 있는 곳들은 크기도 다양해서 자기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때마다 그에 맞게 창조한 곳으로 가서 즐기도록 창조해 놓았다.
22. 세상에서 성자가 재림의 몸으로 보낸 자를 통해서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신부로 살던 성약인들이 끝까지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가면, 그들은 천국의 같은 지역, 같은 주관권인 ‘성약성’으로 갈 수 있다.
23. 천국에는 각자의 집이 다 있다. 세상에서 자기가 공적을 세운 대로 집이 다 있기에 남의 집에서 안 산다. 세상에서 부부였거나 부모 자식 간이었더라도 천국에 가면 한집에서 살지 않는다.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 세운 공력대로 지어 주신 집이 있다. 각자 거기서 살아야 제재받지 않고 100% 편히 살게 된다. 각자의 집에 살면서 서로 교통하고 왕래하

면서 산다.

24. 천국의 이 집과 저 집 사이는 서로 불편함 없이 떨어져 있다. 공간이 충분하다.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각각 살아가며,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끼리도 서로 교통하며 살아간다.

25. 천국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집에서 해 먹기도 하고, 초대해서 같이 해 먹기도 한다. 천국에는 공적으로 파티나 모임이 많아서 거기서 음식을 먹는 날이 많다.

26. 천국에서는 저마다 맡은 일들이 많아서 바쁘다. 자기 시간이 있고, 공적 시간이 있다.

27. 같은 천국이라도 지역과 위치에 따라 삶이 다르다. 수만 층 세계다.

28. 천국은 자기 생각, 행실, 체질의 전개체 세계다.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믿고 행한 대로 영이 변화되어 그에 해당되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29. 세상에서도 자기와 풍토·체질·기후·생각이 맞는 곳에서 산다.

30. 자기 육의 생각과 사고와 행실에 따라 자기 영이 변화되어 천국에 가는데, 같은 천국에 가서도 자기 공적과 개성에 맞는 지역과 위치에서 살게 된다. 고로 같은 천국에서도 수만 층으로 쪼개져 존재한다.

31.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각과 행위에 맞게 해 주신다.

32. 자기 생각과 행위와 공적에 따라서 천국의 지역이 결정되고, 똑같은 지역에서도 얼마나 더 공적을 세웠느냐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체질대로 물을 좋아하면 물을 배경으로 하여 살게 하시고, 산을 좋아하면 산을 배경으로 하여 살게 하신다. 그러나 꼭 자기 생각·행위·체질·공적에 따른 전개체 세계에서 산다.

33.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갈 때 삼위일체의 생각과 가깝게 산 자들의 영은 천국에 가서도 삼위일체와 가까운 위치에서 산다.

34. 세상에서도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은 자들이 부부가 되어서 한집에서 살게 된다.

35. 천국에서도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삼위일체의 생각과 마음에 맞게 살면서 ‘사랑’으로 일체 되어 산 자들의 순으로 삼위일체가 계신 곳에서 가까이 산다.

36. 천국은 세상같이 개인 제도, 가정 제도, 국가 제도, 세계 제도가 아니다. 오직 삼위일체의 제도로 존재한다. 천국은 영의 세계로서 영원한 체제다. 어떤 것은 세상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거의 다르다.

<2012년 5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영이 어느 주관권 천국 세계로 갈지 결정되면, 영이 그 세계에서 더 잘하며 공적을 세워도 그 세계 안에서 더 높이 발전되지, 천국의 더 높은 다른 세계로 가지 못한다.

2. 가령 신약급 천국으로 간 영이 거기서 더 잘한다고 해서 성약급 천국으로 못 옮긴다는 말이다. 다만 신약급 천국에서 더 좋게 발전되어 더 좋은 위치에서 살게 된다. 체질, 생각, 공적 때문에 다른 주관권 천국으로는 못 간다.

3. 지상에서 육이 살아 있을 때 행한 공적과 영이 영계를 거치면서 행한 공적대로 자기 영이 만들어져 각각 그에 해당되는 천국 세계에 간다.

4. 세상에서 한 번 남자로 태어났으면 잘한다고 해서 여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 더 빛나게 된다. 여자도 그

와 같다. 천국에서도 그러하다. (한 번 결정된 천국 세계는 바뀌지 않고, 거기서 조건을 세우면 그 주관권 천국에서 위치만 더 좋아질 뿐이다.)

5.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종교 사명자가 되었다. 거기서 잘하면 정치가가 종교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세계에서 더 잘된다. / 천국에서도 어떤 영은 신부로서 성약권 천국에서 살고, 어떤 영은 자녀로서 신약권 천국에서 산다. 이렇게 한 번 결정되면, 천국에서 그 영이 공적을 세우며 더 잘해도 자기가 사는 주관권 안에서 잘되며 차원만 높이지, 다른 주관권 천국 세계로 가지 않는다.

6. 자기 체질·생각·공력으로 받은 환경과 명예와 기쁨인데, 더 잘했다고 해서 다른 차원, 다른 급으로 주면 다 버리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 다른 차원, 다른 급의 세계에는 거기에 맞는 자들이 산다. 고로 자기 생각과 체질에 안 맞다.

7. 세상에서도 원시인은 원시인들끼리 수준이 맞고, 재벌가들은 재벌가들끼리 수준이 맞다. 자기 수고와 실력에 맞는 곳이 자기와 맞는 곳이다.

8. 영계에서 다른 차원, 곧 다른 급, 다른 주관권에서 사는 자를 만나기는 한다. 그러나 성자 주님이 허락하셔야 만난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통한다. 그러나 같은 주관권에 와서 살지는 못한다.

9. 천국은 세상같이 물은 물대로 모여 존재하고, 산은 산대로 모여 존재하고, 길은 길대로 모여 존재한다. 천국에 사는 자들도 그 성품대로,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진 대로, 공력대로 그에 맞게 그 주관권에서 존재한다.

10. 같은 급 천국 세계에 사는 영들끼리는 서로 잘 통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산다.

11. 세상에서 살 때 각 교파대로 수준이 같으니, 휴거되어 천국에 간 영들은 천국에서도 그에 해당되는 주관권에 속하여 수준대로 각각 모여 산다.

12. 천국의 같은 주관권에서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같은 시대로 와서 그 수준의 삼위일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같은 마음과 정신과 공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거의 같은 주관권 천국으로 가게 된다. (예를 들어, 성약권 천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성약시대로 와서 성약 사명자를 통해 전하는 성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늘의 신부가 되어 신부의 마음과 정신과 공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영이 거의 성약권 천국으로 가게 된다.)

13. 세상에서도 같은 형제, 같은 동네 사람인데도 삶의 차원과 생각에 따라 삶의 층도 다르게 나뉘어져 산다. 삶의 층이 달라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는 한다. 그러나 어떤 자는 정치, 어떤 자는 사업, 어떤 자는 공무원, 어떤 자는 종교, 어떤 자는 학문을 하며 산다.

14. 자주 만나고 살아도 그 삶은 각자 자기 수준대로 다른 세계에서 산다. 자기 체질과 생각에 따라 자기에게 맞는 천국이다.

15.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하고 이성으로 썩어서 사는 자는 그곳이 자기 천국이다. 깨끗하게 사는 곳은 자기와 안 맞아서 괴로워서 못 산다.

16. 깨끗이 사는 자는 술을 먹으면 오바이트가 나오고, 담배를 피우면 고통이 오고, 마약을 하면 괴롭고, 이성을 접하면 환멸이 오니 지옥 같다. 그러니 술, 담배, 마약, 이성으로 사는 자와는 같이 못 산다. 결국 자기 마음 체질, 뇌 체질대로 천국으로 삼고 산다.

17. 전능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다가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 그 영이 그 대가로 고통만 지속되는 세계로 가게 된다.

18. 세상에서 육이 살아 있을 때 자기 마음과 행위와 체질을 온전히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그 영이 멸망으로 가게 된다.

19. 욕만 생각하지 말고 영을 생각하여라. 강 건너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라. 뗏목이라도 준비해야 강을 제대로 건너가지 않겠느냐. 욕만 생각하고 살다가는 욕도 어쩔 줄을 모르고 살고, 강 건너서 영도 어쩔 줄을 모르고 산다.
20. 천국은 세상에서 삼위일체의 뜻대로 온전히 살던 자들의 영혼이 가는 세계다. 영혼이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그 육체는 세상에서 다 죽게 되고, 영혼만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산다.
21. 육체는 죽고, 욕의 생각·마음·정신·행위 중에서 선한 것만 영혼이 받아서 가지고 간다.
22. 천사장 루시엘같이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는 자는 천국에서 쫓겨난다.
23.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뜻을 세우려 했다.
24.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다고 하니, 루시엘은 “인간을 창조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이 고생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인간들이 할 몫까지 다 할 테니 창조하지 마세요.” 했다. 듣기에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루시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천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창조할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인간의 욕과 영이 천사보다 더 사랑받을 것을 알았다. 고로 하나님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인간을 창조하면 하나님이 너무 고생한다고 하면서 지능적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전능자의 법에 어긋난 행위였다. 하나님은 그 생각과 행위를 아시고 “인간을 창조해야 된다.” 하셨다.
25. 하나님은 천사들도 창조하신 자로서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므로 그의 말과 행위를 아셨다.
26.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천사보다 더 낮은 존재로 창조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하나님은 항상 전과 똑같이 창조하시든지, 아니면 더 좋게 창조하시든지, 더 못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고로 루시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인간 창조의 계획을 막은 것이었다.
27.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은 인간의 욕과 영을 창조하여 인간의 욕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으시고, 그에 따라 인간의 영도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시켜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 영원히 사랑 세계를 누리며 살려고 창조하셨다.
28. 천국은 삼위일체가 천사들과 함께 사는 세계였다. 그러나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이를 통해 천국을 애인들과 함께 사는 사랑의 세계로 차원을 높이셨다.
29. 삼위일체는 사랑의 본체이시다. 고로 사랑의 상대적 존재가 있어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사랑의 대상이 없기에 만족하지 못하셨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형제들도 형제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격이다.
30. 삼위일체가 직접 사랑의 대상체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욕을 통해서 영을 창조하셨다. 인간의 영은 욕을 쓰고 태어난 것이다. 욕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땅에서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면, 욕의 행위에 따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다 욕신이 죽은 후에 영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삼위일체를 모시고 사랑의 대상체인 신부가 되어 살게 된다.
31. 루시엘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속으로 불만까지 품었다. 천사들보다 더 사랑받는 대상을 창조하니 사랑의 소외감을 탄 것이었다.
32. 하나님은 천사들도 천사로서 얼마든지 사랑받고 살게 하셨건만, 루시엘은 자기 주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았다. 고로 전능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루시엘은 천국에서 쫓아내셨다. 고로 루시엘의 직위는 떨어졌다. 그와 같이 한 천사들이 천국의 천사들과 전쟁하여 저서 천국에서 쫓겨났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은 세상 지구로 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지상에서도 책임을 못 하고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악의 근원이 되었다.

33.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중심자같이 뽑아 행하니, 루시퍼는 하와를 꺾어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게 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돌리게 했다. 그 형벌로 사탄은 더욱 지옥의 형벌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었다.

34. 루시퍼뿐 아니라 그와 같이 타락한 악의 영들은 악의 세력을 모으고 엄청난 악의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대상인 인간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에 가담하여 그 조건으로 인간을 꺾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고, 계속 훼방한다. 고로 인간이 절대 삼위일체를 중심하고 살아야 사탄의 조건에 안 잡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구원을 받는다.

<2012년 5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주님이 아니면 챙길 자가 없다. 돌볼 자가 없다.
2. 아는 자가 아는 척하고 돕고 이끌어 준다.
3. 성자 주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구 세상 인생들의 총구원자이시다.
4. 어디 가나 주밖에 없다.
5. 새 역사에서 성자가 보낸 자를 버리면, 지난날에 살던 기성으로 옛 토지를 갈러 갔어도 성자는 그를 버린 자 취급하신다. 자기 행위가 그 위치로 갔기 때문이다.
6. 자기의 인식과 하늘의 법은 다르다.
7. 영계는 세상같이 안 통한다.
8. 육계에서 욕이 벗어나면 영계에서 영도 벗어나 있다.
9. 육계에서 섭리사를 벗어난 자를 영계에서 보니 다른 주관권에서 살고 있었다.
10. 성자 주님을 벗어나면 어디를 가도 벗어난 세계에서 산다. 이는 성자께서 전체를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11. 임금의 눈에서 벗어난 자가 궁에서 쫓겨났다. 그는 그 나라의 어디를 가도 벗어난 위치에서 살지, 충신이 될 수 없고 신하도 될 수 없다. 하늘 눈에서 벗어난 자는 복직될 때까지 그러하다.
12. 누구는 말하길 “여기 아니면 없나?” 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떠났다. 그리고 기성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과 성자를 찾았다. 그러나 그 영혼은 계속 형벌 기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언제까지 형벌 기간을 보냅니까?” 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위치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다.” 하셨다.
13. 육신의 마음과 행위로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14. 육신 썼을 때 영혼 구원이다.
15.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이 영계에서도 구원받고 생명권에 있다.
16.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영이 영계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에 있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은 그대로 지옥으로 간다.

17. 시대에 따라 지상에서 종 역사 - 자녀 역사 - 신부 역사가 결정된다.
18.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신부 역사를 못 한다. 때가 되고 성장되어야 땅에서 신부 역사를 시작한다.
19. 과정 중에 목적지를 향해 가기는 해도 과정이 목적지는 아니다.
20. 구약시대는 한 여자가 소생하는 기간이고, 신약시대는 장성하는 기간이고, 성약시대는 완성하는 기간이다. 신약시대 성장기 역사가 끝나고 성약시대부터가 신부 시대다.
21. 과일도 계절 따라 나고 크고 익는다. 하늘 역사도 때에 따라서 그 때가 되어야 그 계획을 이룬다.
22. 태 안에 있는 태아와 결혼할 수 없고, 태어나지도 않은 자와 결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아무 때나 신부 역사를 할 수 없다. 하늘의 때가 되어 하늘이 정한 대로 신부 역사를 한다. 고로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때가 안 되어 신부 역사를 할 수가 없었다.
23. 하나님이 지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키우시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아담 이후 구약을 거치고, 신약을 거치고, 성약 때 딱 한 번 신부 역사가 있다.
24. 육적 재림 휴거도 한 번이고, 영적 재림 휴거도 한 번이다.
25. 누가 하늘의 신부가 되겠느냐? 재림시대에 태어난 자들만 신부 주관권에 살고, 재림시대에 살아도 성자 주님이 택한 시대 사명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살아야 신부가 된다.
26. 종은 종으로 끝나고, 자녀는 자녀로 끝나고, 신부는 신부로 끝난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을 어느 급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영의 영원한 삶이 좌우된다. 죽은 후에 영이 영계에서 다른 급의 세계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았을 때 그 주관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7. 도자기도 가마에 들어가기 전 흙을 빚어 만들 때, 이미 접시인지 항아리인지 결정된다. 흙을 빚을 때 모양이 결정되면 그 모습으로 끝난다.
28.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 영이 영계에서 거할 위치가 결정된다. 태 안에서 남녀 성별이 결정되듯이, 지구 태에서 자기 영이 거할 세계가 결정된다.
29.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회개하고 신약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신약권으로 넘어왔듯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넘어와야 그 영도 영계에서 새 시대 주관권 천국에서 산다.
30. 일생 동안 구약 종 주관권에서 하나님만 믿고 성자는 안 받아들이고 구시대에서 살아 놓고, 그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신약권으로 오겠느냐. 구약 영계 종 주관권으로 간다. 그것도 신약 역사를 악평하고 핍박하지 말았어야 한다.
31. 이 세상 육계는 강이라면, 영계는 바다와 같다. 강에서 건너와야지 바다에서는 못 건너온다.
32. 축소시켜 보자. 한 남녀가 세상에서 살 때 서로 결혼해야지, 죽어서 결혼하면 결혼이 되겠느냐. 육신으로 인하여 영이 변화되고 재창조된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님의 신부가 안 됐는데, 육이 죽은 다음에 영이 주님의 신부가 되겠느냐.
33. 이승에서 저 영의 세상이 결정된다.

34. 때도 되지 않았는데 구약 세계에서 신약 아들의 혜택을 받겠느냐.
35. 신약 세계에서 성약 신부의 혜택을 받겠느냐. 성약역사로 와서 성약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만 신부의 혜택을 받는다.
36. 땅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시대만 메시아를 보고 믿고 혜택을 받는다.
37. 제철 과일이듯 제때 제 역사다.
38. 세상의 곡식도 저마다 종자가 다르다.
39.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난다. 결정된 후에는 결정된 그 주관권 안에서 더 좋게 성장할 뿐이다.
40. 아예 씨가 다르다. 사과가 되려면 씨가 사과 씨여야 한다. 사과 씨가 크는 가운데 복숭아 열매가 되지 않는다.
41. 돌포도나 돌감이 크는 가운데 참포도나 참감이 되지 않는다. 참포도나무와 참감나무에 접붙여야 참포도와 참감이 열린다. 그것도 때를 따라 접붙여야 된다. 가을이 아닌, 봄 한 계절에 접붙여야 된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메시아와 일체 되어 영의 운명을 결정해 놔야 된다.
42. 신부 씨가 있고, 자녀 씨가 있고, 종 씨가 있다.
43. 자녀권에서는 신부로 삼지 못하고 종권에서도 신부로 삼지 못한다. 신부로 삼아도 하나님은 신부의 뜻은 펴지 않으셨다.
44. 땅에서 성자 주님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우고 하늘과 땅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고 흠 없이 신부로서 조건을 세워 성자 주님이 택한 자가 '신부 씨'다. 그가 성장하여 다시 오신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맞고 성자 주님과 함께 성약역사를 펴 나간다. 신부의 씨가 된 자가 성자 주님과 더불어 신앙으로 낳은 자들이 신앙의 신부가 된다.
45. 신약 초림 때는 하늘의 성자가 아들로 와서 아들의 몸인 나사렛 예수와 일체 되어 2000년 동안 신앙의 아들 딸들을 낳았다.
46.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과 함께 강림하시어 역사를 펴셨는데, 신앙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조건을 세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중심인물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과 함께 신앙의 종들을 낳았다.
47. 아브라함이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고, 종이 아닌 아내 사라를 취하여 아들 이삭을 낳았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창 21:12)."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신앙의 씨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 역사를 편다." 함이었다.
48. 종 가지고 종 역사를 펴고, 아들 가지고 아들 역사를 펴고, 신부 가지고 신부 역사를 편다.
49. 종권과 자녀권과 신부권의 차이는 이와 같다. 비유컨대, 종권은 아예 혈통이 다른 사람과 같고, 종자가 다른 동물과 같다. 자녀권은 신랑 앞에 신랑의 형제와 같다. 신부권은 신랑 앞에 모든 것을 갖춘 여자와 같다. 고로 신부 시대와 와야 성자가 재림하시어 땅에서 신부들을 만드시며 신부 역사를 펴시고, 하늘 천국에서도 신부들을 데리고 혼인 잔치를 하신다.
50. 한 가정에서도 다 신부가 될 수 없고, 다 자녀가 될 수 없고, 다 일꾼인 종이 될 수도 없다. 천국도 그러하다.
51. 세상에서의 삶이 그대로 하늘로 반영된다. 곧 육의 삶이 그대로 영에게 반영된다는 말이다. 땅에서 육이 신부이면

하늘에서 영도 신부요, 땅에서 육이 자녀이면 하늘에서 영도 자녀요, 땅에서 육이 종이면 하늘에서 영도 종이다. 하늘에서 영이 더 조건을 세우면 종이 자녀가 되고, 자녀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은 종 주관권에서, 자녀는 자녀 주관권에서 더 좋게 되기만 한다.

52. 여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남자가 되고 싶다고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땅에서 하늘의 자녀로 산 자들의 영은 하늘에서도 자녀로 더 좋게 복직되기만 한다.

53. 도자기를 가마에 굽기 전에 흙으로 형상을 만들 때 모양이 결정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태 속에서 이미 난자와 정자가 결합됐을 때 성별이 결정된다. 이미 다 만들었을 때는 그 형체로 영원히 결정된다. 이 세상은 결정하는 곳이다. 신부, 자녀, 종을 결정하는 곳이다. 천국, 낙원, 선영계, 지옥을 결정하는 곳이다. 그러다 성자의 재림 때 신부로 휴거된 영은 성약권 천국에 거하게 되고, 자녀로 휴거된 영은 낙원을 거쳐 신약권 천국에 거하게 된다. '세상(육계)'은 마치 시험장과 같다. 육신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마치 시험 보는 기간과 같다. '영계'는 육신이 시험 본 것을 가지고 영이 사는 곳이다.

54. 영은 육의 삶에 따라 결정된 영계에서 사는데 신부는 신부로서 살고, 자녀는 자녀로서 산다. 미완성된 영들은 각자 그 주관권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복직되는 제2의 삶을 살 뿐이다.

55. 지구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기회를 줬는데 안 한 자는 그것으로 끝난다.

56.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때는 하늘의 때다. 삼위일체가 세상에 사람을 쓰고 오셔서 그렇게도 역사하실 때 세상에서 안 믿고 살아 놓고, 육신 죽고 영으로 그제야 삼위일체를 믿고 산다고 되겠느냐. 끝났다.

57. 세상에서 결정이 난다. 세상에서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육의 행실을 따라 결정된 영계로 가도록 사자들이 인도한다.

58. 재판 중에 결정 나지, 감옥에 가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다. 이같이 세상에서 그 영의 구원 급이 결정 나고 영계의 위치가 결정 난다.

59. 육신의 행위로 영의 운명이 결정 난다.

60. 봄·여름에 농사지어 곡식을 키우는 기간에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되고, 과일을 키우는 기간에 과일의 상 - 중 - 하가 결정된다.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기만 하고, 과일을 따기만 한다. 육계는 봄·여름과 같고, 영계는 가을과 같다.

61.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끝이다.

62. 육계에서 못 하고 그 영이 지옥에 갔는데, 영이 지옥에서 의를 행한다고 해서 지옥에서 나오겠느냐. 못 나온다.

63. 육계에서 하늘의 자녀인데, 영계에서 하늘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육계에서 신약권에 있던 자가 영계에서 마음대로 성약권에 가서 속하지 못한다. 영계의 삶은 육계의 삶의 결과체다.

64. 육계에서 남자라면 영계에 가도 남자이고, 육계에서 여자라면 영계에 가도 여자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육이 재림 주 성자를 맞고 그 보낸 자를 맞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그 영이 영계에 가도 신부 주관권에 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산다. 육계에서 육이 신약권에서 살면, 영이 영계에 가도 신약 주관권에서 산다.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본체'와 '성자 분체'를 모르니 육적인 신앙을 못 벗어난다.

2. 나사렛 예수님은 ‘성자 분체’다. 나사렛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과 성자의 전지전능하심을 평가하니 낙심하는 것이다. 성자 분체인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 본체로 보고 믿으니, 그가 행한 것을 성경에서 봐도 인간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나사렛 예수님이 악한 자들에게 당한 것을 보고 낙심하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3.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 때 성자의 분체다. 고로 신약 때는 하나님도 성자도 시대가 예수님을 대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대해 주시며 역사를 펴 나가셨다.
4. 만일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성자 분체를 대하는 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역사를 펴 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성자가 행하시는 대로만 다스리고 분체를 통해 행하셨으면, 성자 분체인 나사렛 예수님도 고생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악한 세상을 쓸고 가셨을 것이다.
5. 세상이 성자 분체를 대하는 대로, 세상이 행하는 대로 하늘 편도 말씀을 전하면서 대항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불신하니 그들의 무력대로 분체가 당하게 되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자들을 살려 주려고 성자 본체와 함께 성자 본체가 대신 죽어 준 것이다.
6. ‘분체’는 세상을 대표한 자이고, 본체는 하늘을 대신한 존재다. 분체와 본체는 땅과 하늘이다. 고로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 하고 힘도 없다. 고로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으라고 그렇게도 성경에 말했다.
7. 본체는 본체에서 떨어지면 하나의 인간이지만, 본체와 붙으면 하나님과 성자의 권세자로 세상에 쓰여진다.
8. 포도나무 가지들은 원가지에 붙고, 원가지는 포도나무 본체와 붙어 있다. 이와 같이 구원받는 자들은 성자 본체와 붙어 있는 성자 본체의 분체들이다. 성자 본체는 하나님과 성자 앞에는 분체이지만, 세상 앞에는 본체다. 고로 성자 본체와 붙어야 된다. 그와 안 붙으면 하나의 인간으로 끝난다. 그와 붙으면 성자 본체의 힘이 오고, 능력도 오고, 성자 본체가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성자 본체가 권세를 주시고, 그 영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9. 성자 본체의 분체가 되는 땅의 사망자, 세상에서 볼 때는 본체가 되는 성자 본체와 일체 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아서 스스로 버려진 바가 된다.
10. 고로 성자 본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나의 육과 늘 절대 하나 되어라.” 하신 것이다. 이는 ‘그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함이다. 성자가 그를 성자의 육으로 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성자의 손발로 삼고 행하고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11.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보이지 않는 성자를 직접 맞으면 보이지도 않고 그 말씀이 들리지도 않으니, 성자가 육으로 삼고 나타난 자와 일체 되어 성자를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 된다.
12. 재림 때 성자 본체와 100% 일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초림 때 성자 분체인 나사렛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유대 종교인들같이 끝난다. 그들은 초림 때 성자 분체인 나사렛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음으로 신약 자녀급으로 나오지 못하고 끝났다.
13. 구약 영계는 선영계이고, 신약 영계는 낙원이다. 신약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100번 가 봐도 낙원이다. 천국과 낙원을 비교도 하지 말아라. 영계에 가 본 자만 알고, 가 봤어도 천국까지 가 본 자만 안다.
14. ‘조경’ 하나까 월명동 조경과 일반 조경이 같은 줄 알고 “모두 같은 조경이지.” 한다. 다른 곳의 조경을 보고 월명동 조경이 똑같은 줄 인식한다. 양쪽을 다 가 본 자만 안다.
15. 낙원도 천국이라고 이름 부른다. 낙원도 천국 주관권에 있다. 하지만 낙원은 천국과는 행정이 다르고, 구역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 낙원에서도 천국에 가려고 조건을 세우고 있다.
16. 영계를 보니, 섭리사에서 신앙생활한 자들 중에서 세상에서 제대로 못 하고 죽은 자들의 영이 낙원에 가서 천국

가는 조건을 세우고 있었다.

17. 낙원을 원본체 천국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세상에서 자기 생각한 대로 그 영이 그곳에 가게 된다.

18. 서울도 한국이고, 대전도 한국이고, 부산도 한국이고, 광주도 한국이고, 대구도 한국이다. 그와 같이 낙원도 천국에 속한 곳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천국과 낙원은 위치가 다르다. 낙원은 우주 안에 있고, 천국은 육체 지역인 우주를 벗어나 영체 지역인 우주 밖에 있다. 천국에서도 삼위일체가 계시는 천국은 또 다른 차원에 있다. / 세상에서도 한계를 정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영계에 대해 아는 한계를 너무나 턱이 높게 정해 놓으셨다.

19. 큰 집에 최고 좋은 방도, 그다음 옆방도 모두 한 지붕 아래에 있다. 쪼개서 분석하면 A급, B급으로 나뉘어 다르다. 제일 좋은 방에 그 집 주인이 살고, 그다음 방은 자녀들이 쓴다. 천국과 낙원도 한 천국의 지붕 아래 있다.

20. 사람 지체도 하체는 낙원이고, 상체는 천국과 같다. 한 지체인데, 위치도 다르고 사용하는 것도 다르다.

21. ‘뇌 과일’은 천국 과일이며, ‘성적 지체 과일’은 세상 육체 과일이다. 똑같은 지체여도 뇌 과일과 성적 지체 과일은 위치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다. 이와 같이 낙원 과일과 천국 과일도 차이가 있다. 낙원과 천국이 똑같으면 왜 낙원이라 했겠느냐. 음식도 낙원 음식이 천국 음식보다 못하다. 배경도 환경도 그러하다.

22. 낙원은 금 길과 보석 길이 아닌 곳이 많다. 특별한 곳에만 금 길과 보석 길이 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거의 금 길이며 보석 길이다.

23. 성자 주님은 낙원에 갔다가 실망하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 하는 짓들 좀 봐라. 그 육신 행위 그대로 강 건너 영계에서 사니,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셨다.

24. 기성인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그 기쁨은 내 기쁨이다.” 하고 찬송하지만, 그 사람 그 수준급이다. 사람은 수준대로 만족한다. 재벌가가 시골 양옥집을 보고 만족하겠느냐. 시골 양옥집을 보고 만족할 자는 시골에 사는 자들이나 집이 없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고로 있는 자는 거저 주면서 살라고 해도 살지 않는다.

25. 낙원은 지구에서 영으로 가깝다. 천국으로 가는 중간 부분에 있다.

26.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신광야가 낙원급이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가나안 복지가 천국급이다. 신광야는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 중간에 있었다. 낙원도 이와 같다.

27. 신약의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지금 낙원에 있는 영들이 천국으로 가도록 복음을 전해 주고 있다. 역시 성자 본체가 낙원에서 그 영을 본체로 쓰신다. 그 천국은 신약권 천국이다. 성자 본체가 재림할 때 낙원에서 완전히 준비된 영들은 성자 본체의 재림을 맞고 휴거되어 신약권 천국으로 간다.

28. 이같이 알고 난 다음에 기도하여 낙원에 가서 거기 사는 영들을 만나 보아라. 인식을 잘못하고 가면, 가도 제대로 못 본다.

<2012년 5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제일 기뻐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알 때였다. 즉 성자와 성령님에 대해 더욱 알 때였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보통 사랑을 넘어 애인같이 신부가 되어서 사랑할 때 제일 기뻐다. 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인생들을 구원할 때, 그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제일 기뻐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고 나처럼 모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과 하나 될 때 그렇게도 기뻐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렇게도 기뻐다.

2. 돈이 없을 때 한 보따리의 돈을 주워 왔을 때도 그같이는 안 기뻐다.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평생 사

랑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만큼은 안 기뻐다. /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원한 기쁨과 세상에서 육적으로 얻는 세상 물질과 영광은 비교가 안 되었다. 육이 얻는 기쁨과 영이 얻는 기쁨은 비교가 안 된다. 그 느낌도 비교가 안 된다.

3.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나 자기 영이 느끼는 강도와 자기 육이 느끼는 강도는 100배, 혹은 1000배 차이가 난다.

4. 천국에 가더라도 육이 가서 느끼면 육신 뇌의 한계가 있어서 육신만큼밖에 못 느낀다. 고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육신은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간다. 전능자의 법이다. 육이 천국에 가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5. 인간의 육이 태어날 때 영이 동시에 같이 태어나게 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영으로 온전히 알아주고 느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심이다. 고로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전능자가 보내신 성자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이 땅에서 모든 절차를 밟고 하늘의 형체를 입고 구원받아 천국에 와서 살라고 하셨다. 이것이 천하가 변해도 안 변하는 전능자 하나님의 영 법이다.

6. 우리와 배다른 기독교인들은 육신이 홀연히 변화되어 천국에 간다고 한다. 육신은 천국에 못 간다. '육이 홀연히 변화되어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땅에서 육이 행한 것을 영이 받아서 영이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어 휴거를 받아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7.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9)." 하지 않았느냐. 신약권은 누구든지 부분적으로 아는 주관관 세계다. 성약역사가 와야 성자가 다시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 가르쳐 주시어 확실히 온전히 알게 된다.

8.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자와 함께 강림하시어 구원역사를 펴시려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나사렛 예수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성자로 본다. / 나사렛 예수님은 항상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다. 이는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이다.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해야 된다.

9.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다시 온다고 했다. 삼위일체 성자가 다시 온다는 말이다. 모든 역사는 삼위일체의 역사다. 전능자의 역사다. 땅에 있는 자의 구원역사 계획이 아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구원역사 계획을 '땅의 사명자를 통해' 하는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상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과 성자의 육체였고, 그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본체와 성자 본체의 말씀이었다.

10. 어린아이 때는 말을 해 줘도 일부만 안다. 고로 모르고 이해를 못 해도 가르치는 자는 어린아이가 클 때까지 이해시키고 가르친다. 그런데 커서도 모르고 이해 못 하면, 그는 지능이 발달되지 않은 자로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11. 모르겠다 하지만 말고 골이 아파도 자꾸 배워라. 배워야 알아서 천재 된다.

12. 천재도 배워서 실제로 천재가 된다. 나도 하늘과 땅에 대해 배워서 천재가 됐다.

13.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모르면 땅바닥을 기어 다니고, 알면 차원으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기도 한다.

14. 모르는 자와 살면 답답하다. 고로 아는 자와 일하면서 산다.

15. 모르면 주는 사랑도 못 받고 세상 썩는 사랑만 좋아 취하고 같이 썩어 간다.

16. 썩는 물이라도 흐르는 물과 하나 되면 썩는 물이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서 정화된다.

17. 무지자와 악평자와 하나 되면 똑같은 썩는 마음, 썩는 행위가 된다.

18. 사망권에 있는 자가 사망권에 있는 자를 구원하지 못한다. 생명권에 있는 자라야 사망권에 있는 자를 구원한다.

19. 어둠이 어둠을 없애지 못한다. 빛이 어둠을 없앤다.

20. 메시아가 인생들을 구원한다.

<2012년 5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신부 다르고, 형제 다르고, 친구 다르다. 느낌도 다르고, 대함도 다르다.

2.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지만 각각 다르시다. 얼굴도 모양도 개성대로 다르시다. 마치 해, 달, 별이 모양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듯 다르시다. 그러나 일체이시다.

3. “삼위일체 외에 누가 더 없습니까?” 하고 기도하니,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해, 달, 별이면 됐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삼위일체는 마치 궁창의 해, 달, 별과 같다. 그 외에는 더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과 형상을 창조했고, 만물도 삼위일체의 기본 구조에 따라 구상하여 창조했다.” 하셨다.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난 자는 그 영도 육도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

4.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난 자는 삼위일체가 지상에 역사를 펼칠 때, 그에 합당한 사명자로 쓰인다.

5. 땅에서 성자의 육이 되어 메시아 사명을 한 자라도 그 육은 육으로 끝나고, 그 영은 천국에 가도 삼위일체의 대상으로만 영원히 존재하지, 감히 삼위일체의 위치에 갈 수 없다.

6. 여자는 한 번 여자로 태어나면, 일생 동안 전능자가 주신 여자로서의 사명을 하며 여자의 영광으로 살다가 끝난다. 남자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신과 생각의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기도 하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다고 만들어지겠느냐. 만들다가 망가져 자기 본래 존재도 상실한다.

7. 자전거가 싫다고 다 부수어서 차를 만들다 보니, 차도 안 만들어지고 자전거 본래의 존재도 없어졌다.

8.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싫다고 아름답게 여자로 개조하여 산다고 하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다고 멋있게 남자로 개조하여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 정신과 마음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몸을 남자로 고치고 여자로 고쳐도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없고, 그 정신과 마음과 혼과 영도 고칠 수가 없다. 고로 여자가 완전한 남자가 되지도 않고 남자가 완전한 여자가 되지도 않으니, 자기 본래의 존재만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자들은 겉만 여자, 겉만 남자이지, 그 살도, 피도, 뼈도, 위장도, 간장도, 신장도, 심장도, 마음도, 뇌는 안 바뀐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

9. 신약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의 육은 삼위일체 성자의 육이 되었다. 하나님은 성자의 상징적인 그 몸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셨다. 그에게 메시아로서 성자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과 함께하셨다.

10.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에게 임함으로 성자 본체의 영이 나사렛 예수님의 육체의 영이 되어 역사를 펴 나갔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육신에 속한 자체 영은 따로 있었다. 나사렛 예수의 육신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영도 성자 본체의 영과 일체 되어 행하셨다.

11. 성경대로 사람은 육신이 태어나면 동시에 영이 태어난다. 육신만 있고 영이 없는 자는 없다.

12. 성자 본체의 영과 나사렛 예수님 자체 영을 쪼개서 알아야 된다. 성경에는 ‘영’에 대한 말이 많이 있다. 어떤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13.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측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했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자체 영이 낙원에 가니, 예수님을 인정한 우측 강도의 영을 함께 데리고 간다 함이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자체 영이 자기 육신을 통해 말한 것이다. 예수님의 육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예수님 자체 영은 영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벧전 3:18-21). 역시 성자 본체가 그 영과 함께하셨다. 그리고 성자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벧전 3:22),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낙원으로 가셨다(눅 23:43).

14. 성자 본체의 영은 천지와 우주와 인간과 무형 세계인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중의 한 존재이시다. 나사렛 예수의 영은 예수의 육신이 태어날 때 육신과 함께 태어난 예수 자체의 영이다.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에게 삼위일체 성자 본체의 영이 임했다. 고로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은 성자 본체가 메시아로 쓴 육과 영이다.

15.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권 메시아로서 영의 세계에서도 신약권 메시아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으나, 사람들에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16. 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육신이 성자 본체의 몸이 되어 생명을 신약권으로 구원했듯이, 그 육이 죽고 영으로도 영계에서 역시 성자 본체의 몸이 되어 사망권에 있는 영들을 신약권으로 구원한다.

17. 성약 재림시대 사명자의 육신도 성자 본체의 몸이 되어 시대 성약 말씀을 받아 생명들을 성약권으로 구원하며 육적 휴거 역사를 펴 나간다. 그러면서 성약권 신부로 영적 휴거를 준비시킨다.

18. 재림 때 성자 본체가 다시 오셔서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시대 말씀을 전하고 역사하신다. 재림시대 사명자는 성자 본체와 함께 땅에서 육으로 하는 육적 휴거 역사를 이루며, 동시에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을 위해 영 휴거를 준비시킨다. 성약권에서 신부로 준비시킨다. /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의 영도 영계에서 그같이 애태우며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을 위해 영 휴거를 준비시킨다. 신약권에서 자녀로 준비시킨다.

<2012년 5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육이 이 세상에서 믿고 존재하던 대로 자기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자기 육의 행위대로 구원급이 정해져 자기 영이 갈 영계의 위치가 준비되어 있다.

2. 신약권에 있는 자들도 성자 본체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고로 육은 죽었어도 영계에서 연속적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를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자신의 영을 휴거의 영으로 더욱 온전히 만든다. 그러나 신부급 휴거가 아닌 자녀급 휴거다.

3.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은 휴거되는 것이다. 고로 휴거를 위해 자기 자신을 만들며 예비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이 살았다고 잘못 인식해서 육신이 휴거된다고 하며 그릇되게 준비하고 있다.

4. 이 세상에서 신약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은 신약권 영계로 간다. 곧 ‘낙원’이다. 그곳에서 영이 제대로 알도록 배우고 자신의 영을 더욱 온전히 변화시키며 성자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다 성자 본체가 재림하시면, 자녀로 100% 완전히 만들어진 영들만 휴거되어 낙원을 거쳐 신약권 천국으로 간다.

5. 땅에서 구약 주관권에서 살던 자들의 영은 구약 영계로 간다.

6. (도표 보여 주며 설명) 세상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목적인 대로 육신이 목적지에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게 된다. 다만 자기 종교대로 간다. 같은 주관권, 같은 행실 때문이다. 영계에서 구약 - 신약 - 성약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에서 같은 주관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행실을 했기에 같은 주관권 영계에 갔더라도 그 안에서 또 자기 행위와 공적에 따라 자기 영이 거하는 차원이 달라진다. 고로 이미 영의 세계가 어떠한지 그러서 가르쳐 준 것이다.

7. 저마다 자기 행위와 공적에 따라 자기 영이 가는 위치와 장소가 구분되어 있다.
8. 악의 영계는 크게 음부 - 무저갱 - 지옥으로 나뉘져 있다. 똑같은 음부에서도 수백, 수천 층으로 차원이 나뉘져 있고, 똑같은 무저갱에서도 수백, 수천 층으로 차원이 나뉘져 있고, 똑같은 지옥에서도 수백, 수천 층으로 차원이 나뉘져 있다. 저마다 자기가 죄를 지은 대로 그 영이 해당되는 악의 영계에 간다.
9. 선의 영계도 크게 천국 - 낙원 - 선영계로 나뉘져 있다. 그 안에서 천국도, 낙원도, 선영계도 또 수백, 수천 층으로 나뉘져 있다.
10. 똑같이 한 세상에서 살아도 그 삶을 보면 수백, 수천 층으로 나뉘져 살고 있다. 빈부의 세계를 보아도 그러하다. 영계도 그러하다.
11. 똑같은 지구에서 같은 태양 빛을 받고 살아도 사는 위치를 보면 수백, 수천, 수만 층의 위치에서 각각 살고 있다. 영계도 그러하다.
12.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행실을 하며 살았던 자들은 그 영이 같은 영계의 위치로 간다. / 영이 같은 영계의 위치로 갔더라도 같은 영계의 위치에서 또 차원이 나뉘져 있어 그 행위와 공적대로 그 위치, 그 차원에 거하게 된다.
13. 천주교, 개신기독교, 섭리사는 각각 다른 영계로 쪼개져 간다. 같은 개신기독교 중에서도 교파에 따라 각각 다른 영계로 쪼개져 간다. 무신론, 불교, 우상을 섬기는 샤머니즘, 불신자, 배신자 모두 각각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쪼개져 간다.
14. 외국에 갈 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공항에 도착해서는 모두 자기가 목적인 대로 간다.
15. 이와 같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을 때는 똑같이 ‘죽음’이라는 세계를 거쳐 간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 이후 영들이 가는 곳은 각각 다 다르다. 세상에서 육신이 행한 대로다.
16. 지금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도 자기 영 급과 사명에 따라 그 영이 각각 다른 영계에 갔다 온다.
17. 세상의 물건도 그 실력과 기능대로만 쓰여지고, 그 위치에 가게 된다.
18. 세상에서 신약 주관권과 성약 주관권은 다르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신약 주관권 낙원과 성약 주관권 천국은 다르다. 영계에서 최고로 좋은 곳은 천국이고, 그다음은 낙원이다.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측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낙원’이 영계에서 천국 다음으로 좋은 낙원이다. 예수님 당세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들의 영은 같은 낙원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갔다. 거기서 새 역사 새 말씀인 성약 말씀을 듣고 완성되면, 성자의 재림을 맞고 신약권 천국에 가게 된다.
19. 신약 때 성자 본체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전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셨다.
20.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1-3)』 했다.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나 함이다.
21.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자를 상징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예수’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

사렛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 불러 왔다. 고로 삼위일체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타나 말씀하실 때는 늘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 본체를 부르나, 성령님 본체를 부르나, 성자 본체를 불러도 2000년 전에 오신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나는 하나님이요, 성자다.” 하셨다. 그러나 본체는 다르다. 본체는 인간이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안 된다. 고로 삼위일체는 상징으로 나타나신다.

22. 어린아이가 목욕탕의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고 죽듯이, 인간이 전능자 성자 본체를 직접 보면 죽을 정도다. 마치 빛의 발광체인 태양을 좁은 방에 갇다 놓은 격이다. (태양 빛과 별을 쬔면 괜찮지만, 태양을 직접 대면하면 그 빛과 뜨거움 때문에 죽는다.)

23. 성자의 심정도 축소시켜 느껴 받아야지, 그대로 느끼면 죽는다.

24. 죽게 하면서까지 느끼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25.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 달라고 해도 보면 죽는데, 죽이면서까지 보여 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26. 성자는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형상이나 나사렛 예수님의 영을 쓰고 나타나셨다. 하나님도 세상에 나타나실 때는 절대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상징체인 사명자를 쓰고 나타나신다. 고로 보는 자들은 그 근본의 엄청난 가치를 모른다.

27.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자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달아야 된다.

28. 죽을 때까지 못 보는 임금이 신하를 통해 나타나서 그를 통해 말하는 격이다. 신하는 임금의 대행자다.

<2012년 6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본체는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안에 있는 종들을 모두 풀어 주며 구원 하셨다. 나사렛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자녀권의 하늘 백성이 되었다.

2.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고, 삼위일체 성자는 또 약속대로 재림하시어 땅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섬기며 삼위일체를 믿으며 재림시대에 합당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의 육신을 통해 신약보다 차원 높은 완성급 성약 신부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역사는 1000년 동안 하게 된다.

3. 이미 신약 때 성자의 육이었던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를 저 주었기에 구약의 넘어진 촛대를 일으켜 세우고 역사를 성장시켰다. 고로 성약 때는 땅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삼위일체를 믿은 자 중에서 땅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여 먼저 성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신부의 조건을 세운 합당한 자를 택하여, 성자는 신랑으로서 그를 육으로 쓰고 그를 중심하여 성약 역사를 펴 나가며 역사를 완성시킨다. 성약역사 사명자에게도 역시 성자 본체는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오셨다. 그래도 시대 사명자는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을 쓰고 행하심을 안다.

4. 똑같은 삼위일체의 성자가 구원 역사를 하셔도 신약 아들급 구원 역사와 성약 신부급 구원 역사는 차원이 다르고, 발판도 다르고, 역사함도 다르다.

5. 같은 사람이라도 상대를 형제로 대하는 것과 애인으로 대하는 것은 다르다.

6. 구원할 자가 매달려서 쫓는 것과 구원받을 자가 매달려서 쫓는 것은 다르다. (구원받을 자가 매달려서 쫓는 것은 땅에서 먼저 성자를 사랑하고 책임분담을 다하고 조건을 세우고 쫓는 것을 말한다. 곧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다.)

7. 자기가 깨달았기에 매달리고 사랑하는 자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요, 책임을 다한 자로서 사랑의 주체가 보기에 최고 사랑의 대상자다.

8. 큰 자는 스스로 한다.
9. 큰 자는 인간 책임 역사를 스스로 한다.
10. 작가는 스스로 혼자 한다.
11. 성자가 아무리 해 줘도 상대가 세울 조건이 있다. 고로 조건을 세울 자가 반드시 해야 된다.
12. 자기가 해야 될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성자가 용서해 주셔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음에서 못 살아난다.
13. 병든 자도 아무리 의사가 고쳐 주지만, 자기가 움직이고 행해야 회복됐다고 한다.
14. 어린아이도 아무리 부모가 보살피 주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가야 걷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니 정상인으로 보고 희망을 가진다.
15.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불변한 전능자다(출 3:14).” 하셨다.
16. 스스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17. 똑같이 섭리사에 와서 신부 신앙을 해도 스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시켜서 하는 자는 하늘과 땅만큼 수준 차이가 난다.
18. 스스로 행하는 자는 큰 자다. 물론 스스로 행하되, 성자 주님과 성자의 육인 중심자와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19. 사람이 성장하면 자기가 혼자 걸어가고, 선악도 분별하고, 자기가 스스로 부모의 뜻을 따라 산다. 신앙도 그러하다.
20.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자도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스스로 행하는 자를 찾아, 그에게 시대 사명을 주어 뜻을 행하신다.
21. 10000개의 등불이 있는데 그중에서 밤이 되면 스스로 켜지는 등불이 있다면, 모두 그 등불을 켜는 것이다.
22. 신약역사 때 이미 무너진 구약의 촛대를 일으켜 세워 성장시켰으니, 성약역사 때는 스스로 해야 하는 신부 세계다. 고로 책임분담 세계다.
23.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 안에서 성장했으니 스스로 해야 된다. 이것이 완성급이다. 완성됐다는 것이다. 신약은 신부가 되기 위한 성장 과정 역사다.
24. 성자와 성자가 보낸 자의 뜻 안에서 스스로 하는 자는 그 면에 완성된 자다.
25. 사랑도 성자의 뜻 안에서 스스로 하는 자만이 사랑에 완성된 자다.
26. 구약 때는 씨를 뿌리고, 신약 때는 성장하고, 성약 때는 가을 되어 거두는 역사다. 이 3단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고 섭리하셨다. 성약 신부 시대는 가을이라서 신부로 추수한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섭리 위에 이루어진다. 고로 시대를 타고 태어나고, 성자가 시작한 완성급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참으로 크다.
27.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설명하는 것도 다르다. 산을 오르다가 1부 능선에서 산을 보고 설명하는 것과, 2부 능

선에서 산을 보고 설명하는 것과, 3부 능선 최고봉에서 산을 보고 설명하는 것이 다르다. 정상에서 봐야 다 보여서 제대로 설명한다.

28. 구약은 1부 능선, 신약은 2부 능선, 성약은 3부 능선이다. (고로 성약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을 온전히 말할 수 있다.)

<2012년 6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자가 있고,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가 있다.
2.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자는 욕에 속한 자로서 욕과 대화하는 자다.
3.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로서 영과 대화하는 자다.
4. 자기 영과 대화하는 자가 있고, 삼위일체이신 성자와 대화하는 자가 있다.
5. 자기 마음과의 대화는 욕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6. 자기 영과의 대화는 영이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7. 기도를 깊이 해야 자기 영이 기도하고 대화한다. 영의 말은 다르다.
8. 자기 영이 상대의 영과 대화하기도 하고, 자기 육인 정신과 마음과 혼이 상대의 영과 대화하기도 한다.
9. 자기 영이 성자와 대화하기도 한다.
10. 인간에게 ‘성품’이 얼마나 중한지 아느냐. 성품은 품종이다.
11. 모든 존재물은 품종에 따라 그 가치와 영광이 좌우된다.
12. 나무도 품종대로 나무의 가치가 좌우된다. 돌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 돌감나무와 참감나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같이 인간의 성품은 품종을 말하며 그 가치와 영광이 좌우된다.
13. 나무가 잘생겼어도 품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이같이 인간의 육체가 잘생겼어도 성품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그 가치는 하늘과 땅이다.
14. 성품은 자기 노력으로 개조된다. 타인의 노력으로 개조된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의 능력으로 자기 노력과 함께 거듭나 개조된다.
15. 성자 주님의 성품과 접붙여라.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성품으로 거듭나라. 그러면 성품이 변화되어 가치 있는 자가 된다.
17. 사람이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워도 그 성품이 돌감나무나 돌포도나무나 가시나무 같으면, 세상에서도 가치가 없고 영의 세계에서조차 가치가 없다.
18. 성품에 따라 영계도 구분되어 간다.
19. 성자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두 돌감나무, 돌포도나무 인생과 같다.

20. 성자 주님을 믿고 그 말씀으로 성품을 고쳐서 육의 성품과 영의 성품을 좋게 만들어 육의 삶도 변화되게 하고,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하늘나라 성자의 주관권에 속한 영이 되어야 한다.
21. 시대 구원자도 삼위일체 하늘 성자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
22.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보고 합당하다고 하셨다.
23. 성자 주님은 성품이 양의 성품인가, 염소 성품인가 보고 모두 쪼개어서 관리하셨다.
24. 성품은 곧 그 사람의 품종이다.
25. 성품이 나쁘면 그 몸을 나쁘게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그 영까지 나쁜 영이 된다.
26. 성품이 안 좋은 자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27. 좋은 성품을 가진 인생 나무에서 좋은 영의 열매를 맺는다.
28. 네 성품을 성자의 성품으로 만들어라.
29. 성품 가지고 심판받는다.
30. 인간은 '성품 값'이다. 성품이 육계의 삶도 좌우하고, 영계의 삶도 좌우한다.

<2012년 6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절대적으로 때를 정하시고 이 땅에 구원역사와 뜻을 펴신다.
2. 때를 정하시고 행하심은 질서다.
3.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전해 주어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성자를 보내어 뜻을 행하게 하신다. 성자는 땅에서 택한 자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순서별로 하나하나 행하신다.
4.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한 때 두 때 반 때로 그 기본을 정했다.
5.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산하면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이다. 총 3년 6개월이다.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다.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다. 이 기간을 시대와 때에 따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그 시대에 맞는 역사로 적용한다.
6. 3년 6개월을 기본으로 하여 시대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을 정하시고 행하신다. 이 기간을 형벌 기간, 무덤 기간, 고역 기간, 암흑 기간이라 하고, 혹은 부활 기간, 예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 조건을 세워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 역사 기간이라고 한다.
7.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개인, 가정, 민족, 세계형으로 그 해당되는 것이 다르다. 클수록 크게 확대해서 적용된다.
8.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구약의 세계형 형벌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을 확대한 4000년이다. / 성자의 초림 때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을 죽인 신약의 세계형 형벌 기간은 2000년이다. 이 기간은 형벌 기간이면서도 종에서 자녀로 복직하는 구원역사 기간이었다. 부활기였다.

9. 한 때 두 때 반 때는 시대에 따라 개인형, 가정형, 민족형, 세계형으로 환산 풀이를 해야 된다.
10. 개인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3일 반, 40일, 혹은 3년 6개월, 7년, 10년, 21년, 40년이 되기도 한다.
11. 민족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40년, 혹은 70년, 120년, 210년, 400년이 되기도 한다.
12. 세계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4000년, 혹은 2000년, 혹은 1000년이 되기도 한다.
13. 민족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크면 100단위로 120년, 210년, 400년 등이다. 작으면 10단위로 40년, 70년 등이다. / 개인형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크면 42년, 40년, 21년, 14년, 10년 등이다. 작으면 1단위로 7년, 4년, 3년 6개월, 혹은 3일 반이다.
14. 구원받을 자가 책임분담을 못 할 때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가 성자와 함께 대신 형벌을 받고 희생하여 살린다.
15.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한 때 두 때 반 때의 형벌 기간이 끝나야, 그에 해당되는 하늘에서 보낸 자가 나타난다.
16. 신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보낸 중심인물들도, 사사들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도 모두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고 나타났다.
17. ‘때’를 알면 그 때에 해당되는 자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18. 시대마다 그 시대 해당되는 자가 나타난다.
19.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때가 되어 온 것이다.
20. 전능자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도 안 하시고, 때가 지난 후에도 안 하신다. 꼭 그 때에 맞춰 사람을 보내서 행하신다.
21. 그 시대 사람들이 조건을 못 세우면 조건을 세울 때까지 역사를 펴 나가시다가, 사람들이 조건을 세우면 그때는 정한 때에 할 일을 행하신다.
22. 요셉은 17세 때 이집트로 팔려 갔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이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대로 1일을 1년으로 확대하여 10년 동안 환난을 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을 보냈다. 그리고 또 감옥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환난을 받았다. 그 후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었다. 나사렛 예수님도 30세 때 메시아 왕위에 올라 구원의 일을 하셨다. (계 2: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23. 역사의 주인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주인이다.
24.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이 지나고 나사렛 예수님이 나타났다.
25. 종교 개혁자 루터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 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이 지나면, 성약역사를 펴며 인생들을 구원할 새로운 역사의 인물이 성자와 함께 나타난다. (루터가 1546년에 죽었으니 그 후 400년이 지나면 새 시대 새 인물이 나타난다.)

26. 때가 안 돼서 오는 자는 그 시대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27. '하나님의 역사'는 밤과 낮같이 절대적으로 '때'를 두고 교체하며 역사가 흘러왔다.

<2012년 6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역사의 주인만이 역사의 때를 이리 계산해도 맞추고, 저리 계산해도 맞춘다.

2. 역사의 주인은 핵심지에서 태어나고 역사를 맞춰 가기에, 어떤 방향으로 따져도 다 맞다.

3. 1920년대에 태어난 자는 성약역사의 주인이 못 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나고 신약의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났다.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루터 이후 400년이 지나고 1945년에 태어난 자가 하늘이 보낸 자가 된다. 성자는 그를 통해 성약역사를 펴 나가신다.

4. 역사의 주인은 때를 맞춰서 오고, 때를 맞춰서 역사를 펴 나간다.

5. 역사의 주인은 하늘 역사의 때도 맞게 행하고, 세상 역사의 때도 맞게 행해야 된다.

6. 역사의 주인은 역사의 때에 맞춰서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

7. 하늘이 보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시는 것에 맞춰 행한다. 고로 역사를 보면 하늘의 것도 맞고 땅의 것도 맞다.

8. 하늘의 역사의 시대 주인은 세상 역사에도 맞춰서 행하게 하여서 세상 역사를 계산해도 다 맞고 성경의 역사를 계산해도 다 맞다.

9. 하늘이 보낸 역사의 주인은 그냥 역사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 시대 역사가 받을 형벌이 있으면, 역사의 주인은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대신 형벌을 받고 해결하고 가야 된다. 시대의 형벌을 대신 받되, 역사의 주인 홀로 받기도 하고, 역사의 주인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과 같이 받기도 한다.

10. 따르는 자들이 잘해야 역사의 주인이 대신 형벌을 받지 않는다. 따르는 자들이 못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역사의 주인이 그 탕감을 다 받고 깨끗이 한 후에 역사를 끌고 나가야 된다.

11. 나사렛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시대의 죄와 따르는 제자들의 죄로 인한 형벌을 나사렛 예수님이 대신 받아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다시 영으로 부활하여 역사를 살리고 구원역사를 이루었다.

12. 성약역사 신부 시대 때도 하늘이 보낸 자가 그 시대와 따르는 자들의 각종 죄들을 마치 빛을 청산하듯이 깨끗이 청산하고 간다.

13. 한 개인이 죄를 지으면 의의 길을 못 간다. 그 죄를 회개하고 탕감을 받아야 의의 길을 가게 된다.

14. 확대한 구원역사도 그 시대 사람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역사의 주인과 같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생명의 역사길을 가게 된다. 해결은 '회개'다. 그리고 형벌을 받으며 죄를 탕감한다. 그리고 나서 복직이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15. 형벌이 끝나면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하던 일을 하듯이, 역사의 주인도 시대의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고 끝나면 하늘 생명 역사길을 다시 가게 된다.

16.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정말 그 시대 책임을 다 해야 된다. 못 하면 죄다. 그 짓값을 역사의 주인과 같이 받아야 된

다. 따르는 자들이 못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역사의 주인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17. 해결할 때까지 못 간다.

18. 세상의 모든 법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공사도 못 하고, 그 어떤 일도 못 하게 된다.

19. 하늘 역사이지만 하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못 했을 때는 그 역사의 주인과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지고 그 짓값을 받아야, 그제야 완전히 깨끗하게 의인이 되어 다시 생명의 역사를 펴게 하신다.

20. 하나님이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 때 두 때 반 때의 탕감 기간은 연속된다. 역사를 따르는 자들의 죄뿐 만 아니라, 세상이 악함으로 그 시대가 하늘 앞에 지은 죄까지 역사의 주인이 대신 조건을 다 세우고 가야 된다.

21.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은 '형벌받는 기간'이라 하기도 하고, '복직하는 기간'이라 하기도 하고, '부활을 위한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라 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기간'이라 하기도 하고, '무덤 기간'이라 하기도 하며, 3일 반을 확대시킨 기간이라고도 한다. 구약은 아담 이후 4000년 동안 형벌 기간, 무덤 기간, 혹은 역사를 펴는 과정 기간이었다. 신약도 나사렛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 동안 탕감 기간, 혹은 부활 기간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이었다.

22. 시대별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축소 - 확대로 계산해야 된다.

23. 짐을 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가다가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인이 역사의 짐을 지고 대신 형벌받을 것이 있으면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을 축소 확대하여 형벌을 받고 그 시대 짓값을 청산한다. 다 청산하면 그때 다시 역사를 뒀다. 세계 형벌을 다 받고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은 하늘의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펴 나가게 하신다.

24. 사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공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의 무덤 기간을 연장시킨다. 고로 시대 역사의 주인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고, 생명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 역사의 주인이 죽으면 육으로는 못 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이 죽으면, 나사렛 예수님 때같이 제자들만 하게 된다. 고로 약하고 위력이 없다.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한다. 영은 육으로 인해 완성되고 만들어지는데, 육이 없으니 영 역시 완성되기 힘들다.

25. 성약시대 때도 이 시대와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역사의 주인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 동안 계속 대신 대가를 치르고 십자기를 저 준다. 다시 오신 성자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땅의 역사의 주인만 짐을 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역사의 근본자는 시대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구원자 성자이시다. 성자가 보낸 자와 함께 역사의 죄를 저 줘야 죄가 해결되고, 성약역사는 다시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

26. 땅의 역사의 주인은 성자의 육으로서 성자가 사용하는 대상이다. 세상이 그를 보고 깨닫고 알고 따르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보냈다.

27. 하나님은 수리의 하나님이다. 고로 정확하게 때에 맞춰 역사를 펴신다.

28. 하나님은 절대 세상에 보낸 자에게 맞춰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예언을 다 맞춰서 뜻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29. 땅의 역사의 주인이 아닌 자는 한쪽만 보면 맞다. 그러나 좌우, 앞뒤로 다 계산하면 안 맞다.

30. 역사의 주인은 어떻게 계산해도 역사가 다 맞다.

31. 하나님은 세상 예언가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역사의 주인을 그곳으로 보내어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하신다.

32. 하나님과 성자는 역사의 주인과 일체 되어 예언한 역사를 다 이루면서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거의 다 해 주시고, 땅의 역사의 주인은 삼위일체의 몸과 마음이 되어 행할 뿐이다.
34. 역사는 축소하면 '시간'이다. 역사의 주인은 시간을 맞춰 행하며 살아야 된다.
35. 육적인 것만 따지면 역사가 안 맞다. 영적인 것을 따져야 될 때도 있다. '부활'도 영인데, 육으로 따지면 안 맞다.
36. 육과 영을 두고 말한다. 영이 갇혔다가 나오면 '영적으로 해방됐다.' 하고, '영이 육에서 나왔다' 하기도 한다.
37. 육의 것만 보면 절대 안 된다.
38. 섭리사 몇 명의 계시자들이 '2012년에 선생이 육에서 나온다' 하는 계시를 많이 받았다. 이는 육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8월이 한 때 두 때 반 때인 3년 6개월이 지나고 영적으로 육에서 해방되는 때다.

<2012년 6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천둥 번개나 쳐야 놀라고 그제야 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비바람 칠 때다. 심판 때라는 말이다.
2.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뜻을 펼 때는 은밀하게 퍼신다. 뜻을 펴는 자만 알아도 되기 때문이다.
3. 성약역사 세례요한 역사의 제자들이 "사명자는 1940년대에 태어났는데,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이 같이 말하는 이유가 있다. /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다. 말라기 이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 후에 신약의 구원자 초림주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났다. /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루터다. 루터는 하나님과 성자의 뜻에 따라 종교 개혁을 하고 1546년에 죽었다. 그 후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인 400년이 지나면 1946년이다. 고로 1940년대에 재림 성약의 사명을 할 자가 온다는 말이다. / 보이는 땅의 사명자가 나타나면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성자가 왔다는 것이다. 성자는 홀로 안 오신다. 반드시 땅의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은밀히 오신다. / 고로 성약역사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은 1920년대에 태어났으니, 그는 땅의 사명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 메시아든지, 세상 인물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보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때에 맞게 온다.
4. 하나님은 역사를 때에 맞춰 정확히 진행하신다. 그 역사의 프로그램은 마치 지구를 운행하여 밤과 낮을 구분하듯 하신다. 중심인물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은 사사 시대를 시작하셨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은 왕들 시대를 시작하셨고, 왕들 시대가 끝나고 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역사를 펴셨다.
5. 중심인물 시대 사사 시대 왕들 시대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 시대가 온다.
6. '메시아'는 중심인물도 되고, 사사도 되고,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어 모든 것을 다 행하지만 중심인물같이, 사사같이, 왕같이, 선지자같이 때에 따라 뜻을 펴며 역사를 끌고 나갔다.
7. 메시아는 하나님 대행이다. 성자가 오셔서 쓰는 몸이니, 성자는 그와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축복도 해 주며 공의로 다스리신다.
8. 농사를 지은 농부가 알곡은 불 지르지 않고 쭉정이만 불 지르듯이, 성자와 그 보낸 자의 심판은 쭉정이 같은 자들과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9. 썩었거나 생명의 세계에 해가 될 때는 버리고 심판하신다.

10. 때가 되어 성자 예수님이 지구촌에 나타나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 여기 있다.” 하며 은밀하게 외치고 계신다. 그러나 “내가 찾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며 지구촌을 헤매신다.

11. 태 세상에서 난자는 정자 하나만 오기를 기다린다. 난자가 기다린 정자 하나만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 이와 같이 지구 태 세상에서 난자 격인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린다. 사람이 기다린 성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12. 성자가 행하실 때는 성자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세상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다. 때로는 성자의 욕이 되어 성자의 쓰임을 받는 자도 모르게 행하신다. 성자의 목적만 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13. 비유를 들어 보자. 어떤 임금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변장하고 한 도시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한 명 뽑아 사랑하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고 계속 목적을 이루어 나갔다. 임금의 뜻만 퍼면 되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안전하게 뜻만 퍼는 것이다. 임금의 목적만 이행하면 될 뿐이다. 목적은 목적이다. 목젓은 목젓이다.

14. 모를 자가 알면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는다.

15. 자기가 누구인지 상대가 모른다고 해서 뜻을 못 퍼지는 않는다. 누구인지 몰라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는 뜻을 펼 수 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성자는 같이 뜻을 펼 자들에게 “나 성자다.” 알릴 필요가 없으셨다. 고로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보이시며 그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왔다.” 하며, 그 시대에 필요한 뜻만 퍼시며 목적을 이행하셨다.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다 이행했으니, 과정 중에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고도 문제도 안 생기게 해 오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다.

16. 비유를 들어 보자. 임금이 신하 한 명을 보내어 사망권에 사는 시골 아가씨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임금의 신하가 시골 아가씨들에게 취직시켜 준다고 하며 데려오든지, 백마 탄 낭군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며 데려오든지, 임금 앞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니 굳이 자기 신분을 밝혀서 “임금의 대행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할 필요가 없었다. 임금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놓고 동네방네 다 소문나면 더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니 조심히 하며 은밀히 행했다. 이 시대에 하늘의 사명자도, 성자 예수님도 이같이 행한다.

17. 대상자도 아닌데 동네방네 다 이야기할 것 없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도 “너는 궁에 간다.” 이야기할 것도 없다. 만일 그가 임금을 알고서도 안 따라오면 소문이 나서 임금의 신변도 위험해지고, 그곳에서 임금의 목적을 은밀히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8. 임금이 자기가 임금인 것을 밝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지 않고 다 따른다면 힘들지 않고 좋지만, 그 중에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생기면 그들이 거짓된 자가 나타났다고 힐문하니 임금은 뜻을 펼 수가 없다. 고로 힘들지만 탈을 쓰고 땀 흘리며 답답하게 행한다. 목적인 자들이 잘 안 따라와도 따르게 하여 한 뜻을 펴고, 따라오면 그제야 알게 해 준다. 이것이 안전하기에 성자도, 시대 사명자도 그같이 행한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19. 성자는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시대 신부로 삼고 성약 구원역사만 퍼면 되기에, 그 육신이 죽을 때까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역사를 펴신다. 그리고 땅에서 신부로 준비된 자들의 영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갈 때 그제야 나타나시어 “나 성자다. 너희가 생각한 것과 다르지?” 하신다. / 재림 때 성자가 땅에 보낸 분체도 그러하다. 성자의 분체는 성자에게 배웠기에 배운 대로 해야 되고, 성자의 몸이니 성자와 똑같이 행해야 된다. /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행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쓰고 행하며 나의 목적인 너희를 나의 신부로 삼고 땅에서 휴거시켰다. 그동안 세상의 알아서는 안 될 자들 때문에 너희에게까지 숨겼다. 모두 이 방법으로 하여라. 힘들지만 안전하다. 고생돼도 생명길이다.”

20. 호랑이가 토끼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가려고 토끼 가족을 입고, 토끼의 말을 배우고, 토끼가 시키는 대로 온갖 것을 다 한다. 토끼가 따르면, 토끼를 호랑이 지역에 데리고 가서 그제야 “나를 보아라.” 하고 토끼 가족을 뱉는다. /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며 우리 영과 육을 신부로 구원시키시고 우리 영이 신부의 형체로 변화되게 하셨다. 그러다가 성자 본체의 영 재림

의 날이 되면 그제야 “나를 보아라.” 하며 그 본체를 보이신다.

21. 백마 탄 초인이 있었다. 한 여자가 백마 탄 초인을 기다린다고 하기에 그 여자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며 “백마 탄 초인은 이같이 온다. 같이 기다리자. 나도 기다리고 있다.” 하며 같이 기다렸다. 그리고 백마 탄 초인은 자기 목적이 있으니, 그 여자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로 삼았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언제 백마 탄 초인이 오나?” 하고 늘 말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된 여자에게 “백마 탄 초인이 오면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여자는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했다. 고로 백마 탄 초인은 은밀하게 여자의 소원을 다 들어 주었다. 그래도 여자는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자가 백마 탄 초인인지 몰랐다. 명칭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백마 탄 초인이 모사를 쓰며 돼지만 타고 다니고, 양만 타고 다니고, 소만 타고 다녔기 때문이다. 백마 탄 초인은 여자에게 직접적인 말을 안 해 주고 은밀히 말하고 행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자 스스로 깨달아야 여자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되어 초인이 되기 때문이다. / 이 시대 새 역사도 그러하다. 성경 말씀대로 성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두 발 달린 백마를 타고 오신다.

22. 뜻을 목적하고 뜻을 이룬 자는 만난다.

23. 뜻을 이룬 자가 말하든지, 말하지 않든지 이는 뜻을 이룬 자의 의향이며 선택이다. 농부도 날씨를 보고 풍세를 살피면서 씨를 뿌리듯이, 뜻을 이룬 자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말하고 행한다.

24. 뜻이 귀한 것이면 뜻을 같이 이룬 상대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밭에 보화가 묻혀 있는데 말하겠느냐.

25. 보물을 찾던 자가 갑자기 없어졌다. 이미 보물을 찾아서 그것으로 먹고 누리며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보물을 감춘 자는 보물을 찾은 자에게 찾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다음 보물을 찾게 하며 희망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함이다.

26.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나의 운세를 보니, 내가 복권에 당첨될 거야!” 하고 큰소리치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닌다. 그러다가 정말 복권에 당첨되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 후에도 그곳에서 살다가는 소문이 나서 강도를 만나니, 다른 세상에서 가서 그 돈으로 몰래몰래 뜻을 펴면서 산다.

27. 꿀 먹은 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약간 표가 난다. 벌이 썩서 입이 부어 있기 때문이다. (벌이 썩다는 것은 시대 역사를 따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12년 6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의 욕이 된 자는 1000가지를 따져 봐도 맞다. 때도 맞고, 위치도 맞고, 말도 맞고, 인물도 맞고, 그가 가는 길도 맞고, 그가 겪은 것도 맞고, 먹고 입는 것도 맞다. 성자께서 오죽이나 자기에게 맞게 고르고, 이미 성경에 자신이 한 말씀에 맞춰 그를 만들어 그 길을 가게 했겠느냐. (고로 은밀하게 전해도 때를 보고, 그 말씀을 들어 보면 다 안다.)

2. 그 단어 그 문구로 모두 안다. 고로 같은 ‘태양’이라도 일출을 일몰이라 하고, 같은 ‘바닷물’이라도 썰물을 밀물이라 한다. 또 가을을 여름이라 한다. 또 갔는데 왔다고 하고, 끝났는데 시작한다 한다. 또 영인데 욕이라 한다. / 이와 같이 따라서는 안 될 자들에게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말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다른 것으로 말하여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 이에 따라서는 안 될 자는 “안 맞다. 그가 아니다.” 하며 눈을 가려 모르게 하고, 오직 목적인 것만 행하여 다른 방법으로 가신다.

3. 어차피 못 올 자들에게는 눈이 두껍도록 가리고, 마음이 발바닥같이 감각이 없도록 계획적으로 행하신다. 성자는 자기를 쫓는 자들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이 깨닫게 두고 가신다. 그런데 건너편에 살면서 어차피 못 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겠느냐. 눈치 채게 하시겠느냐.

4. 지옥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그 영혼은 천국길로 간다.” 하신다. 그가 자기 가는 길에 돌을 던지지 않게 하려 함이

다.

5. 천국길로 가는 자들에게도 행여 방심하여 걸을까 봐 “네가 지금 지옥 가까운 쪽으로 가고 있다.” 하기도 하신다.
6. 기도를 많이 하고 전심으로 거짓 없이 행하여라. 그러면 하늘이 알아서 행위대로 대가를 준다. 묻지 말고 느끼면서 가라.
7. 다 간 후에 말해 준다.
8. 33년이 다 간 후에 말해 준다.
9. 가는 길에 말해 주면 여기저기 소문나서 그 말을 듣고 날파리가 날아와서 괴롭히고, 까마귀가 날아와서 눈도 찌고 귀도 쫄다.
10. 갓난아이에게 빨리 세상을 보고 엄마를 보라고 억지로 눈을 벌려 주지 말아라. 억지로 햇빛을 보면 눈이 먼다.
11. 시대 눈을 못 뜨는 자를 보고 답답하다고 억지로 마음눈을 까 벌리지 말아라.
12. 억지로 보지도 말고, 억지로 보이지도 말아라.
13.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기만 하면, 목숨 걸고 따라가겠다!” 한다. 그러나 보여 줘도 다들 목숨 걸고 따르지 않는다. (고로 억지로 보이지 않고 깨닫고 따라올 자들만 따라오게 한다.)
14. 같이 먹고 즐긴 자가 맘 변하면 지난날을 부정하고 미친개가 되고 야수 되어 물고 뜯고 갇은 짓을 다한다.
15. 자기가 기른 개라도 주인을 물면, 주인은 즉시 시장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시장 골목에서 개를 사는 자에게 조용하게 개가 한 짓을 말해 준다. “이 개는 어디를 가도 주인을 모셔 살 개가 아니니, 그리 알고 지혜롭게 행하세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안 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다. 그 개를 산 자는 즉시 쇠고랑에 개를 묶어 매고, 손님을 기다린다. (한국 사람은 이해가 빠르다.)
16. 평화 없고 희망 없이 사는 자들이 불쌍하여 도와주니, 뜯어먹고 잡아먹으려고 붙잡고서 온갖 것을 다 뺏는다. 이에 바다 건너 와서 땅을 흔들고 집을 흔들고 온갖 산천을 흔드니, 그제야 두려워서 토끼가 한 말을 생각한다.
17. 코끼리가 개미를 데리고 다니면서 “험한 세상에서 밟혀 죽으니 내 등을 타고 다녀라.” 하며 등을 대 준다.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모든 계시는 받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알 수 있다.
2.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상황을 두고 물었기에 성자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3. 성자가 어떤 입장에서 그같이 계시했는지 깨달아야 된다.
4. 문제없는 답이 없다.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답인지를 알아라.
5. 성경도 어떤 시대에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같이 말했는지 알아야 이해한다.
6. 사도 바울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기도 했고,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하기도 했다. 어떤 상황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고, 어떤 상황에서는 먹으라고 했다. 고로 어떤 입장에서 말했는지 알고 행해야 된다. 제사 음식이 꺼리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고, 꺼리지 않으면 먹으라고 했다. 또 신앙이 어린 자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다.

7. 나사렛 예수님은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시며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듣든지 안 듣든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함은 무조건 이유를 달고 비판하고 불신하는 자에게는 그 귀한 말씀을 전하지 말라 함이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함은 복음을 외쳐야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함이다. / 상대의 심정과 상황에 따른 성자의 계시다. 고로 자기의 심정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였고, 어떤 자에게는 하라고 하셨다.

8. 이 시대 계시를 보아도 성자 주님은 어떤 계시자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였고, 어떤 계시자에게는 하라고 하셨다.

9. 어떤 계시자에게는 “나사렛 예수 자체가 성자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하셨다.

10. 어떤 계시자에게는 “나사렛 예수는 세상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의 영이 임했다. 고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다.” 하셨다.

11. 어떤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 없는 자는 종이다.” 하고, 어떤 자는 “아버지가 보내신 영이 없는 자는 자녀다.” 한다. 아버지가 보내신 영은 성자의 영이다.

12. 어떤 자는 “부부는 일체다. 하나다.” 하고, 어떤 자는 “아니다. 남녀 각각이다.” 한다.

13. 어떤 자는 “나사렛 예수는 그 자체가 전능자요, 삼위일체의 한 명이요. 성자다. 그는 천지를 창조한 자다.” 했다. / 어떤 자는 “아니다. 나사렛 예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 하셨다. 그 중의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를 아들의 몸으로, 메시아로, 인류의 구원자로 쓰셨다.” 했다.

14.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계시했는지를 알아라.

15. 구약시대에는 절대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내면서 할례를 했다.

16. 신약시대에는 절대 마음으로 기도로 할례를 했다. 어느 시대의 법이 더 크고 이상적인 법이냐?

17. 종들은 종들 수준에서 해야 했고, 아들은 아들 수준에서 해야 됐다. 애인은 애인 수준에서 ‘말’로 하고 통한다.

18. 성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개인의 차원과 시대의 차원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다.

19. 성자는 계시받는 자의 차원에서 말씀하신다. 계시를 받는 자들은 못 받는 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고 닦고 정성스럽게 기도한다. 계시를 못 받는 자들은 새벽에 잠을 자거나, 혹은 기도해도 기도만 하지, 영계를 보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20. 계시를 받은 자는 알고, 못 받은 자는 모른다. 받은 자가 맞느냐. 못 받은 자가 맞느냐.

21. 월명동에 수만 명이 다니지만, 개오지를 본 사람은 4명뿐이다. 못 본 자는 3만 명이 넘는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본 사람은 있다고 하고, 못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선생도 봤다. 누구의 말이 맞느냐. 개오지를 못 본 자들은 못 만나서 못 본 것이다. 개오지가 없다고 하는 자들도 눈이 있으니 만나면 본다. 개오지가 얼굴을 굽고 옷을 찢으면 믿고 증거하겠느냐. / 이와 같이 성자와 나사렛 예수를 쪼개지 못하는 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삼위일체다. 창조자다. 성자다.” 한다. 아는 자는 “성자는 삼위일체의 한 존재자요, 나사렛 예수는 신약 때 성자의 몸으로서 메시아다.” 한다. 누구의 말이 맞겠느냐.

22. 성자와 나사렛 예수를 쪼개서 말한 자가 누구냐. 말해 보아라. 누가 그같이 말했는지, 그가 누구인지 근본을 알아

라. 그를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정녕코 시대 구원을 못 받고 휴거도 못 한다. 그의 한마디 말로 인간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 그는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자다. 전능자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땅의 합당한 자의 욕신을 쓰고 온 자다. 그는 6000년 동안 신구약 구원역사를 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하시려고 사람들에게 100% 온전하게 믿고 변화되라고 하시며 자신을 밝히셨으니, 곧 '성자'다. 그는 전능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다.

23. 그 성자께서 이 새벽에 내게 이 글을 쓰라고 하시어, 나는 그의 욕이 되어 이 글을 쓰고 있다. 성자의 욕, 곧 성자의 분체가 아니면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성자와 통하는 자가 없다.

24. 사람을 전능자로 보니 힘이 오겠느냐. 전능하신 성자가 욕으로 쓴 자가 당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않느냐. 그는 전능자에게 쓰여지는 분체요, 욕이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다. 그는 신약시대에 세상을 대표한 자다.

25. 욕신을 가진 자는 두려움·아픔·고통에 처하면 그 환경에 처한 자가 된다. 욕신이기 때문에 사명이 메시아였어도 매달면 매달리고, 때리면 맞고, 배고프면 쓰러지고, 죽이면 죽었다. 그 몸이 나사렛 예수였다.

26. 성자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삼위일체로서 신이다. 그 성자가 신약시대 때 나사렛 예수의 몸속에 살면서 그와 함께 맞아 주고, 고통을 받아 주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 삼위일체의 성자를 믿고 받아들인 자가 된 것이다. /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독생자를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요 3:16).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자로서, 그 역시 전능자라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 고로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의 욕을 쓰고 나타나셨다. / 나사렛 예수는 성자와 일체 된 자이니, 보이는 예수를 통해 성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구원을 받게 된다. /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욕신을 창조자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믿다가 죽으니 실망한 것이다. 그를 통해 성자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 / 나사렛 예수님의 입장과 성자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자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 여자 왕비를 통해서 그의 남자인 왕을 알아야 된다. /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셨다. 성자를 알고, 그의 욕이 누구인지 알아라. / 이사야 1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지혜와 모략과 총명과 지식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모든 자들도 그렇게 살게 한다.” 했다. / 나사렛 예수와 성자는 다르다. 삼위는 일체로 존재하지만, 각 위로 존재한다. 성자는 하늘 나라 백 보좌에 있는 삼위일체로서 아들 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 보좌에 있는 삼위일체로서 아버지 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령님은 하늘나라 백 보좌에 있는 삼위일체로서 어머니 격으로 존재하신다. 나사렛 예수는 인간으로서 삼위일체가 역사하신 자다. / 하늘나라의 백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아라. 인간이 구원받아 그 영이 천국에 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대상체'다. 다만 하나님의 상대적 존재로 세상에서 구원의 사명자로 크게 쓰인 자는 천국에서도 크고 높은 위치에 거하며 큰 성을 얻기도 하고 한 세계를 얻기도 한다.

<2012년 6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모세가 어느 시대 사람이나. 우리 신앙 선조들의 구원자다. 모세가 이 시대 우리와 무슨 관계냐.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주겠느냐. 천국의 중간층에 거하는 구약시대 모세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미 욕신의 삶이 끝나고 사명이 끝나고, 그 영이 천국의 한 성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산다. 모세를 부르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모세가 말하기를 “시대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당신 옆에 있소.” 한다. 그 시대 그 사람이다. 한 시대 한 인물이다.

2. 신약시대에는 성자가 신약 때 보낸 자가 책임이고, 성약시대에는 성자가 성약 때 보낸 자가 책임이다.

3. 재림은 근본자 성자가 하신다.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근본자가 하신다. 다만 땅의 합당한 자의 욕신을 쓰고 하신다. 성자의 욕으로 쓰이는 자는 보이는 사람이니, 그 보이는 자를 통해서 깨닫고 행함으로 보이지 않고 역사하시는 근본자 성자를 믿고 따라간다.

4. 사울 때는 사울 왕을 따라가야 살았고, 다윗 때는 다윗 왕을 따라 가야 살았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 따라가야 살았다.

5. 기드온 때는 기드온을 따라가야 살았다.

6. 성삼위는 시대마다 사역체나 분체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중에서 성자가 구원의 핵이 되어 역사하셨다. 고로 성삼위의 사역체나 분체를 따라야 그 시대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며, 새로운 구원도 받는다.

7. 밥이나 먹고, 세상 살기에 미쳐서 돈이나 벌고, 직장이나 다니고, 명예·권세·정치·경제·자기 가정·자기 삶·자기 직업에 빠져 살기에 바쁜 자들이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알겠느냐. /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의 생활로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겠느냐. 시대 사명을 받지 못한 자가 어찌 하겠느냐. / 오리라 한 의인은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지극히 죄인을 의인화 하니, 전능자께서 보낸 자를 통해 심판을 안 하시겠느냐. / 성자의 옥이 된 자는 세상이 죄인으로 대하고 옥에 가두어도 세상이 못할 일들을 전능자에게 구하여 개인·민족·시대의 죽음의 위기를 면하게 해 준다. 그는 땅의 구원자다. 성자가 그를 옥으로 삼고 구원 사역으로 쓰는 것이다. / 구원자만 구원하지, 나머지는 구원을 받는 입장이다.

8. 절대적으로 성자가 보낸 자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지구 세상 70명의 인구수도 필요 없고, 직위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직위가 높고, 돈이 많더라도 성자가 보낸 자가 아니면 전능자의 행하심을 모른다.

9. 할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말고, 부모나 형제를 자기 애인으로 보지 말고, 자기 애인을 제대로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화를 당했을 때 구출받지 못한다.

10. 이 시대는 오직 전능하신 성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신랑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단코 그러하다.

11. 성자 본체를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항상 상징으로 보이신다. 인간이 성자 본체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삼위가 의논하여 천법으로 정하셨다. 성자의 옥이 된 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를 통해 행함으로 보이시나 그 역시 ‘상징체’로서 인간의 육신이다. / 성자의 옥을 통해 성자를 본 것은 마치 배는 봤는데 그 속에서 항해를 담당하는 선장은 못 본 것과 같다. 배는 성자가 쓰는 육 격이고, 선장은 성자 격이다. / 배를 타고 가도 선장은 못 본다. 비행기를 타고 가도 조종사를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서 조종실은 밀실로 되어 있다. 성자도 그러하시다.

12. 성경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외치며 살았어도 성자 본체는 못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영의 모습을 비취 상징적으로 성자를 본 것이지, 성자 본체를 본 것은 아니었다.

13. 수고도 없이 모두 똑같이 주의 계시를 알게 하지 않으신다. 각자 수고하여 알게 하신다.

14. 성자에 대한 계시도 그러하다.

15. 앉아 있는 자나, 서 있는 자나, 잠을 자는 자나, 걸어가는 자나, 뛰어가는 자나 똑같이 알게 계시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뛰어가는 자만 흘리는 땀을 보게 하였다. 고로 계시를 인봉해 놓았다. 모두 푸는 수고는 해야 된다.

16.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같이 완전하게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하셨다. / 누가, 어떻게 물었기에 이같이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된다.

17. 선생이 성자 주님께 “성자의 육으로 쓰이는 자도 너무 약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봐도 약합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합니다.” 하고 물었을 때, 성자 주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같이 완전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하셨다.

18. 왜 그러냐고 물었다.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 100년은 육이 탄생할 때 동시에 영을 탄생시켜서 육을 통해 영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는 과정의 삶이다. 육신을 영원히 존재시킬 것도 아니고 과정 가운데 영을 위해 잠깐 쓸 몸인데, 뭐 그리 신같이 완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가들이 건물 본체를 지으려면, 건물을 지을 때 목을

곳이 필요하다. 그 거처지는 나무판자로 임시로 짓지, 건물 본체처럼 완전하게 지을 필요가 없다. 임시 거처지에 거하며 건물 본체를 완공한다. 이와 같이 육신도 영 본체를 완성할 때까지 필요해서 임시로 창조하셨다. 고로 신같이 완전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다.” 하셨다.

19. 하나님 본체는 삼위만 본다. 천사들도 그 본체를 본다.

20. 지금 내가 성자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쓰고 기도한 것을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그래서 천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한 것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니 볼 수 있습니다.” 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다. 고로 삼위의 본체를 본다. 성경을 보면,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항상 전능자를 보고 모신다.” 했다.

21.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체제로 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22. 돼지는 인간이 하는 것을 보아도 이해를 못 하듯이, 모르는 자는 알고 행하는 자가 행하는 것을 봐도 이해하지 못한다.

23. 한 자리에 수천 명이 있어도 수만 명이 있어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말하고 간다. 알고 깨닫는 자만 알고, 다시 또 가르치며 역사를 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100명 중에서 이해 안 되는 자 90명이 있어도 시대 말씀을 선포하고 가면, 나머지는 모두 보고 따라간다.

24. 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강의 안 하고 그냥 가느냐. 배우는 자 10000명 중에서 10명만 알아도 전하고 간다.

25.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 중의 아는 자들은 알고 구원받고 외치고 간다.

26. 모르는 자들 때문에 그들을 의식하기만 하느냐. 행한 대로 받도록 시대 말씀을 전하고 간다.

27.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내게 오셔서 상상도 못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다. 처음에는 조금 알고 깨달았지만, 결국 모두 다 이해하고 알고 행하여 구원받고 그 말씀을 시대에 선포했다.

28. 영계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 간다는 사람들이 30명 모였다. 나도 같이 배웠다. 모두 하늘나라 원어였다. 하루 종일 배우는데 한국말은 4글자만 지나갔다. 다 배우고 가는데, 천사가 정문에서 “내일 또 와요.” 했다. 그 다음날 또 갔다. 한 달 동안 다니는데 30명이 반도 안 남았다. 글을 모르니 계속 떨어져 나갔다. 한동안 가니, 30명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만 남았다. 그때쯤 나는 영계의 말을 거의 다 알아들었다. 그 말은 역사에 관한 것이었고,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성경을 100% 푸는 단계의 말이었다. 이곳은 낙원 영계였다. /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기도 생활을 계속했다.

29. 지금 말한 것은 성자께서 계시자들을 통해 계시해 주셨다.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 성자만이 아신다. 고로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이다.

30. 낙원과 천국은 다른 세계다. 무지한 자나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한다.

31.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외식으로 읽어본 자다. 인본주의자요, 아주 육적인 자다.

32. 우리 형제 가운데서도 낙원과 천국이 같다고 하는 자가 있다. 낙원이 천국인 줄 알고 갈 것이니 어찌냐. 시대 말씀을 못 배우니 알 수가 없다.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도 각각 다르다. 안 가본 자는 모두 같다고 우기며 무지를 주장하지만, 사탄보다도 더 무식한 자다. 사탄도 음부와 무저갱과 지옥이 각각 다른 곳임을 상식으로 알고 있다. 사탄보다는 많이 알아야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2012년 6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죄를 짓는 것도 욕신, 의를 행하는 것도 욕신이다.
2. 사람은 죄를 지어도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해도 고통을 받는다.
3.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려니 고통을 겪게 된다.
4. 의를 위한 고통을 겪고 의의 길로 가면 영원한 의의 세계에 가지만, 죄를 짓고 그 대가로 고통을 받고 죄의 길로 가면 영원한 죄의 세계로 가서 거기서 또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회개'는 의를 행하는 길로 가게 한다.
5. 자기 욕이 편안한 길로 가면 얻는 것이 없고 공적이 없어 무(無)로 끝난다.
6. 욕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영이 천국길을 간다.
7. 자기 욕의 삶을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영을 보고 영의 운명을 아는 자는 거의 없다.
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에너지로 존재하시며, 에너지로 창조하시고 에너지로 행하신다. 힘, 능력, 지혜 등 각종 다양한 에너지다.
9.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자기 힘과 에너지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사용하며 살아간다.
10.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11. 자기 에너지가 약하면 강한 자와 하나 되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면 된다.
12. 기도는 능력이요, 에너지다. 그 힘은 실천으로 얻어진다.
13. 모든 존재물은 생명력의 에너지로 존재하고, 자기 존재 자체 힘으로 존재한다. 그 힘이 없어지면 끝나게 된다.
14.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과 에너지로 하게 된다.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감사의 힘, 실천의 힘, 생명을 살려 주는 힘,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데서 오는 힘, 이러한 힘으로 존재한다.
15. 영으로 살아야 욕보다 강한 에너지가 오고 큰 힘이 온다.
16. 차의 엔진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이다. 고로 엔진이 오래되고 약해지면 끝난다.
17. 구시대도 존재하는 사명의 힘이 있다. 그러나 때가 되어 그 일을 다 하게 되면 힘이 없어져 이끄는 힘이 없어진다.
18. 새 시대 새 말씀으로 삼위일체 성자가 새 역사를 하시니, 새 힘이 일어난다.
19. 각자 어떠한지 자기 자신을 보아라. 힘을 잃은 자들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20. 힘 있는 자와 일체 되고 기도하여 다시 성령의 힘을 받고 성자의 뜻대로 행하여라.
21. 한 개인도 욕신이 늙으면 힘을 못 받는다.
22. 젊어도 욕신이 행하지 않으면 힘을 못 받는다.

23. 인간은 생각과 정신이 엔진으로써 힘의 발생지다.

24. 게으르면 힘이 사라지고, 부지런하면 힘이 솟는다.

25. 뭉치면 힘이 많아진다. 흐르는 물을 막으면 연못이 되고, 저수지가 되고, 댐이 되어 힘이 있다.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목숨이 뭉치면 개인도, 교회도, 섭리사도, 민족도 힘이 커지고 웅장해진다.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기도하면 큰 힘을 받는다.

2.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외치면 큰 힘이 온다.

3.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큰 힘과 능력이 온다.

4.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해야 전능자의 힘을 받게 된다.

5. 제때 행해야 힘을 얻게 된다.

6. 때가 지난 후에는 행해도 힘이 없다.

7. 성자 예수님과 그 욕이 되는 사명자와 일체 되어서 해야 영원한 힘이 온다.

8.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욕이 되는 사명자와 일체 된 사랑을 하여라. 사랑의 힘은 천주적인 힘이다.

9. 개미 하나도 들어 올리려면 힘이 필요하다.

10. 성자의 사랑의 힘을 받아라. 어떻게 성자의 사랑의 힘을 받는지 그 비밀을 말해 주겠다. 먼저 사랑하여라. 그러면 성자께서 다양한 힘을 주신다. 그 힘으로 너의 희망이 곧 이루어진다.

11. 온전히 행해야 합당하여 성자께서 힘을 주신다.

12. 성자 예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

13. 힘은 생명이다.

14. 생명은 힘이다. 생명이 있어야 힘이 있다.

15. 사망권에 있는 자는 힘이 없다.

16. 생명력이 없으면 기능을 못 한다.

17. '생명'에는 욕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 욕의 생명에서 영의 힘이 오고, 영의 생명에서 욕의 힘이 오도록 서로 힘을 발생하며 연고 수수작용 한다.

18. 사망권에 있는 욕과 영은 기능을 상실한 채 살고 있다.

19. 잠을 자면 기능이 없어 힘이 없듯, 신앙도 잠을 자면 그러하다.

20. 전심을 다해야 힘이 생긴다.

21. 영도 욕도 전심을 다하여라.

22. 힘대로 얻는다. 선의 힘,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진리의 힘, 아는 힘, 의의 힘, 사명의 힘, 성령의 힘, 성자의 힘, 하나님의 힘이다.

23. 영적인 힘을 욕적으로 쓰면 약해지고 기능이 바로 사라진다.

24. 영적인 힘은 욕을 통해서 영적으로 써야 기능이 강해져서 자기 욕도 다스리고, 욕적인 것들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된다.

25. 삼위일체의 성자를 근본으로 알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제대로 알 때, 그로 인하여 힘을 받고 제대로 구원을 이룬다.

<2012년 6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기도하면 큰 힘을 받는다.

2.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외치면 큰 힘이 온다.

3.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큰 힘과 능력이 온다.

4.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해야 전능자의 힘을 받게 된다.

5. 제때 행해야 힘을 얻게 된다.

6. 때가 지난 후에는 행해도 힘이 없다.

7. 성자 예수님과 그 욕이 되는 사명자와 일체 되어서 해야 영원한 힘이 온다.

8.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욕이 되는 사명자와 일체 된 사랑을 하여라. 사랑의 힘은 천주적인 힘이다.

9. 개미 하나도 들어 올리려면 힘이 필요하다.

10. 성자의 사랑의 힘을 받아라. 어떻게 성자의 사랑의 힘을 받는지 그 비밀을 말해 주겠다. 먼저 사랑하여라. 그러면 성자께서 다양한 힘을 주신다. 그 힘으로 너의 희망이 곧 이루어진다.

11. 온전히 행해야 합당하여 성자께서 힘을 주신다.

12. 성자 예수님과의 약속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힘을 얻게 된다.

13. 힘은 생명이다.

14. 생명은 힘이다. 생명이 있어야 힘이 있다.

15. 사망권에 있는 자는 힘이 없다.

16. 생명력이 없으면 기능을 못 한다.

17. '생명'에는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 육의 생명에서 영의 힘이 오고, 영의 생명에서 육의 힘이 오도록 서로 힘을 발생하며 얻고 수수작용 한다.

18. 사망권에 있는 육과 영은 기능을 상실한 채 살고 있다.

19. 잠을 자면 기능이 없어 힘이 없듯, 신앙도 잠을 자면 그러하다.

20. 전심을 다해야 힘이 생긴다.

21. 영도 육도 전심을 다하여라.

22. 힘대로 얻는다. 선의 힘,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진리의 힘, 아는 힘, 의의 힘, 사명의 힘, 성령의 힘, 성자의 힘, 하나님의 힘이다.

23. 영적인 힘을 육적으로 쓰면 약해지고 기능이 바로 사라진다.

24. 영적인 힘은 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써야 기능이 강해져서 자기 육도 다스리고, 육적인 것들도 다스리고, 세상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된다.

25. 삼위일체의 성자를 근본으로 알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제대로 알 때, 그로 인하여 힘을 받고 제대로 구원을 이룬다.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예수님과 일체 되어서 받지 않은 계시는 자기 의지와 자기중심 계시이며,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써 놓은 자기 계시이며, 기타 타 영의 계시다.

2. 주와 접목되지 않은 계시는 자기 계시다. 혹은 타 영들의 계시다.

3. 주가 보낸 자의 영이 주는 계시도 주의 계시로 인정된다.

4. 성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특별 계시이며, 성경을 통해 기록한 말씀도 특별 계시다. 선생이 직접 전하는 주님의 말씀도 특별 계시에 들어가고, 또 선생이 글로 전한 주님의 말씀도 특별 계시에 들어간다.

5. 자신이 기도하여 온전히 깨달은 것도 성자 주님의 계시로 인정된다.

6. 누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리요. 성령으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7. 자기가 노력하고 책임을 하여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도 주와 하나 된다.

8. 주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며 대화하면, 성자 주님과 대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9. 혼자 기도만 하면 말만 길어지게 된다.

10. 대상 없는 대화가 있고, 대상 있는 대화가 있다.

11. 성자 주님을 오게 하는 기도가 있고, 기도로 성자 주님께 찾아가는 기도가 있다.
12.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약속대로 해 주신다.
13. 자기가 상대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상대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빌려 준 돈을 받아야 한다. 그때 그냥 지나가면 못 받는다. 이와 같이 시간도 흘러가면 못 쓰고 끝난다. 있을 때 써야 한다.
14. 새벽 시간은 묶어 놓은 거액과 같다.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시간을 기도하며 쓰는 자를 영적으로 보면 거액의 돈뭉치를 쓰고 있다.
15. 주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인간은 주님께 꼭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
16.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자기도 주님께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17. 전지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은 다 들으시니 말을 해야 된다. 나사렛 예수님의 영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께서 듣는 것이다.
18. 성자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행하여라!
19. 나사렛 예수님의 영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상관도 없다. 자기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기 바쁘시다.
20. 너를 보고 사랑하며 애간장 태우시는 분은 전능자 성자이시다. 정신 차려라!
21. 아브라함이 너를 지켜보느냐. 모세가 너를 지켜보느냐. 옛날 선지자들이 너를 지켜보느냐. 천국에 가서 그들의 영을 보니, 바쁘게 자기 삶을 살고 있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영도 그러하다.
22. 구약의 인물을 부르거나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며 간구하면, 거의 성자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총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고 행하면 성자와 통하는 자로서 복 있는 자다.
23. 어떤 사람은 자신과 상관이 없는 자를 평생 부르며 살았다. 부르면 늘 도움을 주니까 그만 불렀다. 그를 부르니, 총책임을 맡은 존재자가 준 것이다. 이는 자신이 직접 나타나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24. 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 어린아이가 갓난아이 때 부모가 죽었다. 고로 다른 부모가 이 아이에게 젖을 주며 잘 길렀다. 실상 원래 부모가 죽기 전에 부모의 재산을 다 주면서 아이를 길러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 아이가 20세가 넘었을 때,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알았으니 갈 길 가는 것이다.
25.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기르셨다. 전능하신 본체는 나타나실 수 없으니, 항상 나사렛 예수님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우리는 알았다. 전능하신 성자 본체는 못 보지만, 이제 새 역사가 왔으니 시대에 맞춰 성자 본체를 통해 성자 본체의 말씀을 들으며 살 때 힘이 나고 능력을 받는다. 이를 알고 믿는 자만이 성자의 능력을 받고, 성자의 손발이 되고, 시대의 사도들이 되고, 성자 주님께서 그 육과 영을 쓰고 행하시며 뜻을 이루신다.
26. 자기 사랑하는 본 부모를 찾은 자는 100%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산다.
27. 아직도 양부모 속에 있는 자는 도움도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산다.
28. 자기의 본 사랑의 대상을 찾은 자는 자기 몸과 마음을 날려 사랑하게 된다.

29. 자기가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알아라. 자기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라.

30. 나사렛 예수가 너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너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나? 제대로 알고 원 줄을 잡아라.

31. 누가 천국의 영원한 주인이나?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외에는 없다. 인간의 사랑의 본체는 오직 삼위일체뿐이다. 이를 알고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복 있는 자요, 육이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 있는 자다.

32.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비유로 하면 해, 달, 별이라고 생각하여라.

33. 삼위일체는 신으로서 인간의 사랑의 주체 존재이다.

34. 삼위일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삼위의 대상이 되어 구원도 받고, 휴거도 되고, 삼위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5. 삼위일체는 땅에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다. 고로 오직 그것만을 목적하고 행하신다.

36.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 안에 속하게 된다.

37. 인간이 인간의 본래 사랑의 대상인 성자의 대상이 안 될 때는 숫자에 상관없이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38. 세상에서도 아는 자만 누리고 갈 뿐이다.

39. 모르는 자는 제대로 가르쳐 주어도 고집을 부리며 불신한다.

<2012년 6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잠언의 계시를 늘 깊이 듣고 깨달아라.

2. (주 편) 추릴 자를 추리고, 찾을 자를 찾으면 떠나기 바쁘다.

3. (주 편) 알면 목숨 걸고 매달리고 붙잡고 사정할 자들이, 모르니 목숨 걸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불신한다. 어떤 자는 알아도 제대로 모르니 성의 없이 형식으로 대한다.

4. (주 편)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안 타고, 떠난 후에 날아와서 탈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뒤따라 올 것이냐.

5. (주 편) 나는 갈 길 가려고 조용히 간다.

6. (주 편) 지금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댔는지 한 명, 한 명 확인하고 다닌다. 밖에서 떠돌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사랑하는 자들만 댔으면 떠난다.

7. (주 편) 이 시대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맨 늦게 탈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복이다. 그만 타면 문 닫는다.

8. (주 편)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때 노아의 식구 8명이 댔는지 확인하고 방주의 문을 닫았다. 식구 중의 아내가 닳줄을 끌러 갔을 때, 방주의 문을 닫기 전에 아내가 어서 배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지금 때가 이때다. 마지막으로 문 닫기 전에 기다리는 순간이다.

9. (주 편) 마음이 닫히면 역사의 문이 닫힌다.

10. 사랑하는 자라도 짝사랑할 때 애타고 그림지, 마음 접으니 그때는 못 생기고 관심 없는 한 여자로 보였다.

11. (선생님의 일화를 바탕으로 하여 깨달으라고 전하는 잠언) 한 남자가 있었다. 너무나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아무리 오랜 시간을 사랑해도 몰라주기에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갔다 오다가 한 여자를 만났다. 길을 물으며 말을 거니, 그 여자는 길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었다. “어쩔 그렇게 길을 잘 가르쳐 줘니까?” 하니, “산 넘어 사는 사람입니다.” 했다. 그러다 대화가 되어 남자가 말했다. “사실 이 길은 제가 올 길이 아닌데, 3년 6개월 동안 짝사랑하던 여자를 마지막으로 보고,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했다. 이에 여자는 “그 시골 아가씨가 뭐가 그리 대단해요?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어릴 때 살던 고향 생각이 나서 공기 마시러 왔어요. 그 여자보다는 내가 사슴이지요.” 했다.

12. 짝사랑하는 자, 그 사람만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 빠져서 살 때는 천하일색 양귀비로 보였지만, 마음을 접고 보니 시골 진달래꽃에 불과했다.

13. 짝사랑하던 여자는 결국 인간을 메시아라고 하는 우상 종교, 즉 라반의 족속으로 갔다.

14. (주 편)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간 그 종교, 그 족속을 나는 짝사랑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이성으로 타락하고 제 갈 길 가 버리니, 너도 마음을 접지 않았느냐. 나도 그 종교, 그 족속을 그리도 사랑했지만 제 갈 길 가 버리니, 나도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사랑하던 그 여자와 같이 그 종교의 지도자와 그를 따르던 자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내게 보인 것이다.

15. (주 편) 나 성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며 신부의 조건을 세운 너를 택하여 시대의 뜻을 폈다.

16. 새 시대에는 새 시대 인물을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17. 내가 짝사랑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산 넘어 소식을 들어 보니, 폐결핵으로 불치병을 가진 자와 결혼하여 산다고 했다. 그 자녀들도 같은 병에 걸려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병들었으니, 아내인 그 여자도 같이 병들고, 자녀들도 그 병에 걸렸다. 그 여자가 속한 종교의 현실도 그러하다는 것을 성자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18. 항상 짝사랑하던 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19. 짝사랑하던 자에게 미련을 끊지 못하고 오랜 시간 질질 끌면, 다른 호수의 백조는 날아간다.

20. 짝사랑하던 자는 논두렁의 뜰부기다. 그 옆의 호수에는 백조가 있다.

21. 짝사랑하는 자가 정한 때까지 안 돌아오면 끝이다. 빨리 집어던지고 호수로 가 보아라. 호수에 가면 찾던 백조들이 많다. 주님 앞에도 그러하다. 주님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시기 전에 돌아와라.

22. 아직도 성자 주님을 짝사랑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자 본체가 책임이니 하나하나 정리하고 백조들이 있는 호수로 가서 백조와 인연을 맺고 호수에서 백조들과 함께 노는 것을 논두렁의 뜰부기들에게 보여 줄 것이다.

23. 뜰부기는 논두렁에 발이나 담구고 뒹뒹뒹거리며 “뜸북뜸북” 한다.

24. 뜰부기는 털도 거무죽죽하고 칙칙하여 잘 보이지도 않는다.

25. 백조는 파란 호수에서 우아하게 다닌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온몸이 굳고 넋이 빠져 쳐다본다. 그러다 백조가 하늘 높이 날아가면, 그 모습이 천사 같다.

26. 뽐부기는 성자 본체와 그 본체가 사랑할 때는 “뽐복뽐복” 하며 뽐 들인다. 그러다가 사랑해 주는 자가 떠나가면 그제야 한탄한다. 성자 본체와 그 본체가 사랑해 줄 때 뽐부기가 백조가 될 기회였건만, 자기 나쁜 버릇과 근성을 고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 논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나마 나중에 논이 개발되어 그곳에 빌딩을 지었다. 고로 자기가 사는 곳마저 없어져서 숲속도 아니고 개울도 아닌 곳에 가서 처량하게 살고 있다.

27. 백조의 호수는 영원하다.

28. 백조에게 뽐부기에 대해 이야기하니, 백조가 말하기를 “우리는 뽐부기를 뽐부기라고 부릅니다.” 했다.

29. 섭리사의 주님의 신부들은 ‘백조’다. 성자 주님을 짝사랑하게 하는 자들은 ‘뽐부기’로서 배설물 취급하여 결국 내보낸다.

30. 성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가 성자 주님을 더 사랑해야 백조가 되어 섭리 호수에서 살고, 하늘 공중으로 치솟는다.

31. 백조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우아하다.

<2012년 6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 보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기어이 해 본다. 그러나 결국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얻고 누려도 곤고함은 해결되지 않으니 또 다른 것을 찾고 행한다.

2. 육적 욕망과 육적 생각은 육에서 끝나고, 영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 한계에 부딪히고 곤고하다. 그러나 영적 욕망과 영적 생각은 영에서 행해지니 근본 문제인 영의 문제가 해결되어 한계도 없고 곤고함도 없다.

3.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받아 행하면 영적 문제가 풀어지니, 영적 욕망과 육적 욕망이 다 이루어져 해결된다.

4. 육으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욕망이 충족이 안 된다. 육은 50에 있고, 영은 100에 있으니 육으로는 못 채운다.

5. 영의 욕망은 영으로 해야 만족하다.

6. 어른의 욕망을 어린이 선에서 이루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7. 영의 욕망은 전능자 하나님 선에서 이뤄야 채워진다.

8. 마음과 영은 영적인 것이 속하였기에 육적인 선에서는 만족이 없다.

9. 육적인 선은 육이 배를 타고 호수를 다니는 격이다. 영이 배를 타고 하나님 바다를 다녀야 만족한 것이다.

10. 육신은 먹고 입고 자면서, 육이라는 배가 자기 영을 싣고 다니면서 영의 생각을 이뤄야 육도 만족하고, 영도 육의 행위를 받아먹고 입고 생활하고 성장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성자의 생각을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과 육이 모두 만족하고,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 기쁨이다.

11. 사람이 꽃으로는 배부른 욕망을 채울 수 없다. 열매로 배부른 욕망을 채우게 된다.

12. 과정에서는 과정적인 만족이다. 과정에서 온전히 다 준비하고 결정되지만, 목적지까지 다 가야만 전체의 만족이 이루어진다.

13. 제자리에서 반복하며 만족하지 말고, 고생돼도 앞으로 가면서 차원을 높이며 만족하여라.

14.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다. (흔히 육의 세계를 인식하듯이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르다.)
15. 영계에서는 육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체가 존재한다. 고로 육계와는 체제가 다르고, 먹고 입고 사는 삶의 체제도 다르다.
16. 마음의 움직임은 육신의 움직임과는 다르다. 이와 같이 영의 움직임은 육의 움직임과는 다르다. 육이 높은 산에 못가 봐도 마음은 높은 산에 가 본다. 마음은 육이 못 가는 곳까지 다닌다. / 이와 같이 영은 육이 못 다니는 공중도 다니고, 먼 곳도 일순간에 다닌다. 영이 일순간에 가는 것도 육은 평생을 가도 못 간다. / 이와 같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육의 세계를 인식하는 대로 미래 영의 세계를 생각하며 산다.
17. 지옥은 자기 실력으로 가지만, 천국은 자기 실력으로는 못 간다.
18. 지옥에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간다.
19.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면 못 간다.
20. 천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가지 못한다. 인도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성자의 가르침을 받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면, 성자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배우고 행하여 육신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며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킨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재림하시면, 변화된 영만 성자를 따라 천국에 가게 된다.
21. 지옥은 인도자가 없어도 간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성자를 안 믿고 하늘이 보낸 자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자들의 육과 영이 세상에서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영이 행한 그대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22. 자기 육과 영이 현재 어느 주관권에 살고 있는지, 기도해 보고 검토해 보아라.
23. 인간이 누구에게 100% 다 배우지 않아도, 자기가 직접 행함으로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
24. 자기 미래를 자기가 확인해 보는 것은 배울 것도 없다. 자기가 직접 행해 보면 안다.
25. 한 시간이나 하루를 두고도 목적을 정하고 사는데, 일생을 두고도 목적 없이 사는 자가 있다.
26. 인생은 육신 삶의 끝이 목적지가 아니다. 육신 삶의 끝은 쇠잔하고, 늙고, 병들고, 망가진 육체로 끝나는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27. 육신 삶의 끝에는 영의 목적지가 있다. 온전한 영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싱싱한 젊은 영 사람이다.
28. 육이 세상에서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듯이, 영도 영의 세계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29. 어떻게 영을 위해서 살겠느냐.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메시아 성자를 믿고, 또 그가 쓰는 구원의 사명자를 통해 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자기 영을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 영은 지옥과 상관없이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천국이나 낙원이나 선영계로 가게 된다.
30. 육의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 100년을 두고 살게 했기에 일순간이다. 고로 허무하다. 인생 100년을 살아도 태어나서 15세까지는 뭘 모르고 산다. 100년을 다 사는 것도 아니라 90년 정도만 산다. / 90년을 살아도 80세 정도는 늙어도 생각하는 것도 3분의 1로 감소되고, 삶을 사는 것도 5분의 1로 감소되고, 희망도 10분의 1로 감소되어 산다. 고로 인

생 80세까지 치면 65년 정도 사는 것이다. / 65년을 살아도 잠자는 시간 3분의 1을 빼면 40년 정도 된다. / 그나마 40년도 극적인 고생과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을 빼면 30년 정도 된다. / 30년 중에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시간을 빼면 20년 정도 된다. / 20년 중에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빼면 15년이 된다. / 고로 인생 100년을 따져 보면 약 15년 정도 사는 것이 된다. 그러니 살았어도 산 것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생을 다 살아 본 자만 안다. / 하루는 24시간이다. 하루 24시간을 한번 보통으로 쓰고, 보람되게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아라. 하루를 확대하면 인생 100년이다. 자기 욕을 위해 살면 욕으로 끝난다. 영을 위해 살면 영원한 미래가 있다.

31. 매일 자기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계산해 보면서, 욕으로 치우쳐 살면 조종하여라.

32. 운동 경기를 하는 자가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나가서 뛰는 시간을 보고 계산하면서, 늦으면 더 뛰고 빠르면 쓰러지지 않게 조정하면서 뛰어야 된다.

<2012년 6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성의 범죄를 할 것을 이미 아셨다. 고로 동산 중앙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
2.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들이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범죄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
3. 나사렛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은 아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이 타락하고 종교가 부패되고 하나님을 형식으로 믿었기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 하나님은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래도 뜻을 이뤄야 되기에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대신 죽어 주심으로 죄를 속량해 주시면서까지 다른 길로 행하셨다. 그 후, 후대에는 역사를 펴 나갔다.
4. 성경을 보면 전자 역사는 사탄에게 유혹되어 깨졌으나, 후자 역사는 성공했다.
5.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적 지체를 가지고 이성의 타락을 하며 향락을 삼을 것을 아셨다. 타락하며 사는 자들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깨닫고 온전하게 살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시고 뜻을 펴시려고 계획하고 만드셨다.
6. 과수원지기가 과일나무들을 심고 키울 때, 꽃은 많이 피워도 모두 열매를 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래도 그 중의 열매를 열 나무를 목적으로 두고 수고하며 과일 농사를 시작했다.
7. 섭리사도 역사를 펴면, 반드시 결실하지 못하는 생명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이루게 위해 시작했다.
8. 가축을 길러도 그 중에 병들어 죽는 가축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가축을 기른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 가축을 가지고 목적을 이룬다.
9. 어떤 뜻을 두고 행할 때 다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한다. 옥토 밭에 떨어진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10.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한 것이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는다. 더러는 실패도 있다. 실패한 것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면 된다.
11.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펴실 때, 인간 창조를 반대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역사를 막고 깨뜨릴 것을 아셨다. 곡식을 뿌리면 새가 쪼아 먹듯이, 변질된 천사장 사탄이 그럴 줄 아셨다. 그러나 곡식을 쪼아 먹는 새는 그물로 잡아 없애기로 계획하고 농사를 시작하듯이, 생명을 사냥하는 사탄은 멸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12. 농부가 밭을 경작하면 곡식만 나지 않고 잡초들도 날 것을 이미 알았다. 잡초가 나면 뽑기로 각오하고 씨를 뿌렸다.

13. 사람도 살아가면서 수시로 욕성이 솟아나 발작한다. 욕성이 솟아나면 낙심하지 말고 각오하고 잡초 뽑듯이 뽑으면 된다. 뽑았는데도 또 나면 또 뽑으면 된다. 곡식이 날 때 잡초가 나도 잡초를 뽑아내고 곡식을 잘 가꾸면 결국 곡식이 다 익고 추수한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욕성이 솟아나 발작해도 뽑고 또 뽑으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면, 욕심은 늘어 없어져도 영혼을 얻었으니 그동안 고생하며 행한 것이 이상적이다.

14. 실패를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니, 실패하면 충격을 받는 것이다.

15. 은혜와 시험이다. 욕성은 치면서 영적으로 가는 것이다.

16. 우리 몸의 자체 체질이 영성으로 가면 욕성이 반대 작용을 한다. 이를 알고, 각오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마음에 영성을 중심하고 행하면 결국 영이 승리한다.

17. 사람이 영적으로 가면 사탄이 영성으로 못 가게 치기도 하고, 자기 욕성이 살아나 욕성과 영성이 치고받고 싸우기도 한다. 이때 자기가 영원한 것을 위해 영적인 것의 편을 들고 간다면, 욕은 미약하고 결국 욕성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18. 농부가 곡식 농사를 지을 때 잡초가 나면 잡초를 뽑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욕성 잡초를 뽑으면, 결국 영성 곡식만 남아 추수하게 된다.

19. 자신의 영적 기준이 욕성으로 인해 넘어져도 영원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다시 일어나 영적으로 하면 이긴다.

20. 자기 마음이 영적인 것의 편이면 결국 100% 이긴다. 자기 영과 마음이 욕성을 다스리면, 자기 욕성이 솟아나도 약하여 영에게 큰 영향을 못 준다.

21.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과 핍박이 온다. 각오하고 하면 된다.

22. 세상 어떤 목적을 두고 행해도 다 어려움이 있다. 그것을 세상적으로 오는 시험과 고통이라고 한다.

23. 소를 기르면 귀찮은 일이 생긴다. 그럴지라도 각오하고 소를 기르는 것이다. 소를 기르면 소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잠 못 자고, 신경 쓴다. 그러나 소를 안 기르는 사람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일이 많다.

24.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농사를 짓고 한 사람은 농사를 안 짓고 살았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고통 받고 귀찮고 힘들고 짜증도 났다. “이렇게 고생하려면 농사 안 짓는 것이 나았을 텐데, 괜히 농사지었구나.”하고 후회도 해 보았다. 여름철에는 비를 맞고, 땀별에서 잡초를 뽑으며 살았다. 농사를 안 짓는 자는 신선같이 편하게 살았고, 농사를 짓는 자는 지옥같이 살았다. / 추수 때가 되었다. 농사를 짓는 자는 그동안 수고한 것을 추수하며 거두기 시작했다. 때가 되어 보니,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은 사람보다 농사를 지은 사람이 100배 더 낮게 되었다. 농사를 지은 자는 그 맛을 알고 계속 농사를 지으며 얻고 살았고, 농사를 안 지은 자는 결국 거지가 되어 사방천지로 얻어먹으며 그 맛으로 살았다. 신앙의 농사도 그러하다.

25.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노는 것보다 100배 낫다. 노는 자는 과정 가운데 10배 더 편하게 살지만, 결국 인생이 늘어 겨울이 닥치면 흑암에서 얼어 죽는다. 그러나 100%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 자는 과정 가운데 고생했지만,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

26. 자기와의 싸움이요, 현실과의 싸움이요, 사탄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절대 믿고 뜻대로 행하는 자의 편이시며, 성자 주님은 함께하신다. 그러니 본인만 하려고 하면 된다.

27. 이성의 유혹도, 육성도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스쳐가는 날파리와 같다. 목적이 목적이다. 과정 중에 고생돼도 목적지까지 가면 된다. 사도 바울은 매일 육성을 치고 꺾고 죽이면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결국 영원히 승리했다.

28. 육성에 기죽지 말고 매일 육성을 꺾고 죽이면서 가라! 육성은 시든 잡초와 같아서 영성을 그늘지게 하지 못한다.

29. 육성을 영성으로 만들어도 육성은 언제 변할지 모르니 육성을 꼭 잡고 하여라.

30. 육성은 체질에 의해 일어난다. 너의 마음이 아니다. 육신은 물질이다. 물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반응이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자기 마음이라고 한다.

31. 가령, 육신에게 밥을 안 먹이면 그 배고픔이 자기 마음에 반응을 보여 음식을 보면 먹어 버린다. 육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반응이다.

32. 신앙은 영성만 가지고는 못 한다. 육체는 생리적 반응이 있기에 육이 살려면 그 작용을 해야 한다. 죽은 육은 육성도 없고, 마음으로 오는 반응도 없다.

33. 고로 육성의 체질을 길들이고, 다스리고, 잘못된 버릇을 고쳐라. 그러면 육이 고장 난 반응을 안 보인다.

34. 자기 육과 마음이라도 고치고 다스려야 다스려진다.

<2012년 6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 어떤 계시를 보일 때 왜 확실하게 보여 주지 않고 일부만 보여 주시고, 또 끝을 흐릿하게 보여 주시냐고 성자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래야 궁금하여 나머지를 내게 묻게 되어 사연이 깊어지기 때문이다.” 하셨다.

2. 꿈에 어떤 계시나 사연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어도 자기에게 깊이 해당되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주님께 물어야 한다.

3.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우리가 묻기를 기다리신다.

4. 사람은 다 보여 주면 혼자서 한다. 다 보여 주지 않으면 보여 준 자에게 더 보여 달라고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게 된다. 그러니 사연이 깊어진다.

5. 다 보여 주지 않는 이유는 관심을 가지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6. 주님은 사랑할 때 다 보여 주시니, 주님께 꼭 물어야 된다. 묻는 것이 사랑이다. 주님은 사랑하도록 우리가 묻게 만드신다.

7. 우리가 궁금하여 물어야 성자 주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

8. 다 보여주고 다 말해 주면,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보고 즐긴다.

9. 고로 주님은 꿈에서도, 평소에도 은밀히 일부만 보여 주고 궁금하게 하신다.

10. 새벽 1시에 일어나라고 성자 주님께서 내게 계시를 하셨다. 꿈에 나와 한 남자가 한 방에 같이 있었는데, 각각 전화기 한 대씩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른 곳에 전화를 하려 하고 있었고, 나와 한 방에 같이 있었던 그 남자는 한 방에 같이 있는데도 내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내가 전화기에 손을 대고 번호를 누르자, 그 남자는 심정을 태우며 내 손

을 잡아당기면서 어떤 말을 했다. / 꿈을 깨고 누워서 ‘무슨 계시일까?’ 계속 생각했다. ‘왜 그 남자는 내가 전화기에 손을 대고 번호를 누르니 심정 태우며 내 손을 잡아당겼나? 두 사람이 왜 한 방에서 전화를 했나? 그 남자는 내게 무슨 말을 했나? 이 꿈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깨닫게 한 것인가? 왜 확실히 안 보여 주셨지?’ 하고 계속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궁금했다.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내 머리에서 꿈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 기도 하며 물었다.

11. 주님께 기도하기를 “왜 무엇 때문에 꿈을 보여 줘도 확실히 안 보여 주시어 궁금하게 하시나요?” 하며 대화로 물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니 궁금하게 하여 묻고 대화하게 유도했다. 궁금하게 만들어야 어서 일어나 내게 물으며 나와 대화할 것이 아니냐. 다른 날은 달리 계시하니, 네가 별떡 못 일어나서 오늘 너를 일으켜 대화하려고 이같이 구상했다.” 하셨다.

12. 주님과 대화하며 또 물었다. “내가 전화기에 손을 대고 전화번호를 누르니, 나와 한 방에 있던 남자가 심정 태우면서 내 손을 잡아당기며 전화기에서 손을 빨리 떼라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남자는 나를 상징으로 보여 줬다. 네가 다른 데 전화를 하니 나와 통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네가 빨리 타인과의 전화를 끊어야 나와 통하지 않겠느냐. 전화를 끊는 것이 빨리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고로 옆에서 네가 다른 데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는 것을 보여 주며 네 상황을 보여 주었고, 그 남자가 심정 태우며 네 손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여 주며 내 심정을 말해 주었다.” 하셨다.

13. 사실 자정이 가깝도록 할 일을 마치고 잠깐 자고 일어나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날 주님이 이같이 계시하시어 기적으로 1시에 일어나 기도했다. 특히 지난 며칠 동안 밤 11시에 자버릇해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요즘은 새벽 3시에 일어났다. 3일 동안 기도하고 기어이 새벽 1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 이에 주님은 이같이 역사하시어 새벽 1시에 일어나게 하셨다. 주님은 이같이 사연을 만들어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14. 주님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은 마치 꼭 통화해야 하는 사람과 전화를 하기 위해 다른 전화를 모두 끊듯이 해야 사랑하는 성자 주님께 전화가 걸려 와 주님과 통한다. 자기가 통화 중이면 주님이 전화하셔도 못 통하듯, 자기가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옆에서 이야기하고 계시하고 말씀해 주셔도 주님과 안 통한다. / 주님이 오시면 빨리 눈치 채고 다른 것들을 잘라라. 안 그러면 주님이 심정 태우며 그 하는 일을 못 하게 잡아당기시니, 모두 끊어 버리고 마음·정신·생각·행실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못 해서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도적같이 전화하듯 하셔도 자기가 세상과 통화 중이라 주님과 못 통한다. 24시간 누구와도 통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최우선은 ‘주님과 통하기’다.

15. 성자 주님은 전능자로서 심정 전화, 마음 전화로 대화하신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고로 깨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옆에 와 계신지 모른다. 항상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고 전화기를 켜 놓고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면 사랑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 수 있듯이, 심정의 전화기를 항상 켜 놓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꼭 정기적으로 오신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온종일 주님께 집중하여라.

16. 마음을 깨워 늘 주님을 부르고, 찾고, 애간장 태우고, 난리를 쳐야 주님을 맞는다. 안 그러면 주님이 문을 두드리며 심정 태우다가 속상해서 가 버리신다.

17. 세상이 악해져서 심정 태우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하찮은 인간들이 주인 되어 살고, 성자 주님은 가시는 마당에도 오히려 인간의 입장이 되어 심정 태우고 애간장 태우며 우리에게 와서 사정하고 간구하고 구걸하신다.

18.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구걸하는 거지가 되었구나.” 하셨다.

19. 끝까지 성자 주님이 구걸하도록 하게 하는 자는 팔자가 돌아가서 자기 복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자에게 가 버리고, 자기는 거지가 되어 문전걸식하게 된다.

20. <70일 성자의 기도> 기간에 정신 차리고 성자 주님을 제대로 맞아라.

21. 이제는 ‘나사렛 예수 맞기’가 아니다. 시대가 바뀌어 ‘다시 오신 성자 맞기’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자가 보낸 자는 사람이라 보이니 ‘이 시대 성자의 육신 맞기’다.

22. 생각이 확실히 바뀌지 않은 자는 섭리사에 와 있어도 옛날 나사렛 예수를 맞는 신앙을 한다. 이 사람은 형제 차원의 신앙인이다.

23. 그렇게도 애간장 태우며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고 드디어 만났다. 그리고 묻기를 “그동안 그렇게도 애타게 불렀는데 저를 아십니까?” 하니, “아니.” 했다. 주관권 역사이며, 주관권 사명이다. 전능자 신이 아닌 인간이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기억하겠느냐. 한 나라 왕이 백성 중의 누가 시골에서 부른다고 대답하겠느냐. 오직 전능하신 성자만이 다 아시고 대답하신다.

24. 성자 주님은 우리의 애인이라 늘 우리를 쫓아다니신다. 성자의 육도 그러하다. 성자 주님은 신이다. 고로 전지전능하시어 언제 어디서 누가 불러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25. 만일 애인이 마음 돌리고 애인을 버리면, 버림을 받은 자는 형제도 아니고 종도 아니다. 영원히 무로 끝난다. 정신 차려라! 버린 후에 쳐다보니 머리에서 생각을 아예 지워서 흠만도 못 하고, 돌만도 못 했다. 영원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천국이었다.

26. 버린 자는 영원히 보기 싫다. 자기 축복을 땅에 묻어 사과나무에게나 각종 식물에게 주더라도 버린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변하면 다 이런 것이다. 누가 아쉽겠느냐. 영혼을 멸하는 자가 두렵지 않느냐.

27. 성자 주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라.

28. 성자 주님을 애간장 타게 한 자는 자기도 애간장 타는 꼴이 닥친다.

29. 주님이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자는 것도, 자기 생각만 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도 모두 ‘통화중’과 같다. 우리가 통화중이면 성자 주님이 애태우며 전화하듯 우리 마음에 대화하셔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빨리 끊어라. 주님은 반드시 “누구에게 그리 전화를 했느냐?” 물으신다. 주님과 통하는 시간에 다른 대상과 통하는데, 이 대상은 대개 사탄이다. 고로 성자 주님께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고 엄히 물으신다.

30.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실 말씀을 보내신다. 고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님과 못 통한다.

31.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자기 할 일 다 하고서 주님과 통하려 하지 말아라. 자기 중심해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사탄과 즐기며 통하는 시간이다. 자기를 중심한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 주님과 통하려 하니, 주님께서 “나 성자다.” 하자마자 배터리가 다 되어 끊어졌다. 주님이 그다음에 하실 말씀은 정말 중한 내용이었다. 결국 못 하고 주님은 떠나가셨다.

3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그때 행하신다. 준비했다가 그때 하나님과 주님을 맞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2012년 6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의 재림도 그러하다.

2. 재림의 날에는 인간의 시간을 안 맞춰 주신다.

3. 하나님은 이미 성자의 재림의 날을 짜 놓고 성자가 재림하게 하신다.

4. 그 날은 천하도 모르고, 땅의 신부들도 모른다. 오직 삼위일체만 아신다.
5. 삼위일체의 성자는 그 때를 아시니, 때를 맞춰 지금 마지막 준비를 위해 가시지 않겠느냐.
6. 땅의 신부들이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것을 알듯이, 신랑의 말을 들은 신부들은 성자의 재림의 경점은 안다.
7. 해가 뜰 때는 해가 뜨는 쪽이 흰하면서 점점 밝아진다.
8. 미련한 자는 해가 비쳐서 반대쪽이 환하니, 그쪽으로 쳐다보다가 뜨는 해를 못 본다.
9. 뱃고동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소리만 남아 있고 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10. (삽화 보여 주며) 항상 배는 소리보다 앞에 간다. (삽화) 아래 비행기 그림을 배로 바꾸기.
11. 비행기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소리만 남아 있고 비행기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12. (삽화 보여 주며) 항상 비행기는 소리보다 앞에 간다.
13. 성자 주님은 소리보다 앞에 가신다.
14. 왕이 떠난 후에야 그 마을에 왕이 왔다고 소리를 내며 떠들썩했다. 그래야 안전하다.
15. 소리만 듣고 사는 자는 시대 소경이다.
16. 눈을 뜨듯이 깨어 기다리는 자만이 성자가 와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은밀히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같이 행하게 된다.
17. 새벽에도 평소에도 주님의 소리는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 들린다.
18. 소리는 그 소리를 낸 자보다 늦게 들린다.
19. 제때 해야 사랑하는 성자 본체와 대화하게 된다. 성자가 가신 뒤에는 대언자가 전해 주고, 그와 대화한다. 깨달아라.
20. 기적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 열차는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고 소리만 들렸다. 성자도 그러하고, 그 시대 보낸 자도 그러하다. * 앞에 비행기 삽화처럼 해당 삽화 제작
21. 미친개들도 그 몸뚱이는 안 보이고 악평 소리만 들린다. 그러니까 귀신이며 마귀들이다.
22. 미친개를 쫓아가니,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논두렁에 빠져서 모를 심어 놓은 논을 뭉개며 개지랄하다가 깊은 수렁에 들어간다.
23. 조용할 때, 은밀할 때 주님은 왔다 가신다. 그리고 가신 후에 왔다 갔다고 이야기하신다.
24. 연애할 때 조용하고, 잔치할 때 떠들썩하다.
25. 하나님도 성자도 행할 때는 은밀히 하시고, 행할 것을 다 하신 후에는 증거하며 소문내게 하신다.

26. 33년 동안 섭리역사를 펼 때는 조용하다가 무덤 기간을 벗어나 다 해 놓고서 증거하면서 소문낸다.

27. 주인공이 사라진 후, 뒷마당에서 뒷북치고 잔치한다.

28. 성자 주님이 조용히 부르며 눈치 하실 때 단둘이서 사랑하지 않고, 청중 잔치하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 때 그제야 애간장 태우며 시간을 내려고 온종일 발을 동동 구른다.

29. 조용한 새벽, 은밀한 새벽이다.

30. 전능하신 신은 새벽에 활동하신다.

31. 잡신은 초저녁 복잡할 때 활동하며 사람의 정신을 빼 가고, 지갑을 빼 가고, 사랑의 지갑까지 빼 가고, 혼도 빼 간다.

32.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생각을 번뜩 떠오르게 하며 가르쳐 줘도 안 한다.

33. 미련한 짓이 습관 들면 고생 돼도 편하다. 열매 없는 나무다.

<2012년 6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주님은 자신으로 인하여 고통 받지 않으신다. 인간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신다.

2. 인간은 자신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

3. 인간이 무지하고 할 일을 못하니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신다.

4.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땅의 구원자와 함께 인간에게 말씀을 준다. 인간이 그 말씀을 믿고 알기까지는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5. 인간이 성자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줄 때, 그 고통은 없어진다.

6. 성자의 심정을 답답하게 하는 자들은 어서 그의 말씀을 배우고 절대 믿어야 된다.

7. 삼위일체의 성자는 상천하지의 메시아이시다. 성자의 육신으로서 사명을 하는 자들이 성자가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자신을 메시아라 가르치는데, 이는 잘못된 자들이다. 그것이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다.

8. 하나님과 성자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내가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전하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다.” 하면, 이는 잘못된 자다.

9. 성자의 육은 세상 모든 자들 중에서 뽑힌 자로서 성자의 말씀을 통역해 주는 자다. 마이크 역할을 해 주는 자다. /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몸 역할을 해 주었다. 그렇다고 그가 전능자 근본 본체는 아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주연 역할을 해 준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성자의 몸 역할을 해 준 것이다. 인간이 볼 때는 인간으로서 구세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본 본체는 아니다. / 성경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과 성자는 인간들 중에서 합당한 자를 뽑아 중심인물로, 사사로, 왕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쓰셨다.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로 쓰셨다.

10. 한 나라 왕의 배우자가 되면, 그 여자는 왕과 부부일체가 된다. 그렇다고 여자가 왕은 아니다. 왕비다. 성자는 왕이요, 그의 육이 되어 쓰임 받는 세상의 중심인물, 선지자, 메시아는 왕비와 같다.

11. 왕이 왕비에게 사명을 줘서 대신 왕의 일을 시키니, 왕의 대역일 뿐이다. 왕의 대역으로 그 일을 하지만, 왕비가 왕은 아니다.
12. 성자는 육신 쓰고 역사하신다. 사람의 영도 자기 육을 쓰고 살듯이, 신도 인간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13. 성자는 자신과 마음도 사랑도 행동도 일체 된 자의 육신을 쓰고 말씀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운동도 하시고, 사랑도 해 주시며 합당한 일들을 하신다.
14. 성자의 몸이 되어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많이 연습하고 연단하고 달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성자는 그 면으로 더욱 전능하심을 나타내며 그 육신을 쓰고 행해 주신다.
15. 전능하신 성자라도 어린아이를 쓰고 나타나시면 크게 나타나지 못하신다. 연단되고 단련된 자를 쓰고 나타셔야 그 만큼 크게 나타나신다.
16. 신은 육신을 쓰고 나타난다.
17. 이는 전기가 전구를 쓰고 비추는 격이다.
18.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보이는 육의 행실을 쓰고 나타나야 모두 보게 된다. 생각과 같은 성자 본체인 영체는 인간의 육신을 쓰고 행해야 보이니, 모두 알고 믿게 된다.
19. 성자와 말 통하기다. 행실 통하기다.
20.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육신을 쓰고 행하셔도 모른다. 그만큼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영계에서는 하늘의 사자들과 천사들을 쓰고 행하신다. 즉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다. 육계에서는 인간의 육을 쓰고 행하신다.
22. 남자가 여자를 쓰고 사랑하듯, 성자는 반드시 인간을 쓰고 행한다.
23. 성자는 쓰기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성자의 육으로 쓰인 자는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받은 것같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성자의 쓰임을 받는 자가 성자가 자기 몸을 쓰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가치를 알고 기쁘다.
24. 성자는 자기 육으로 쓰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인간이 이를 깨닫고 그의 손과 발이 되고 몸이 되어 행하게 하신다. 마치 한 남자와 그의 사랑하는 여자가 함께하듯 하신다.
25. 성자의 육이 되어 시대의 중심으로 쓰이는 자는 절대 성자의 신부가 되어 쓰인다.
26. 성자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하는 구원자라면, 누구든지 그를 믿고 따라도 구원이 없다.
27. 인간 자체로는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
28. 구원의 총책임자이시며 사령관이신 성자께서 인간을 통해서 행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29. 성자가 쓰는 육신을 통해 나간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는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이기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30. 성자는 그 시대 중심자, 곧 시대 사명자, 곧 성자의 육신을 중심하여 그 시대 주권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육신도 합당하면 그때그때 쓰신다. 역시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육신을 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뇌, 머리, 생각, 마음을

쓴다는 말이다. 성자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그 육으로 쓰는 자의 마음과 생각에 주시면, 그가 감동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니 자기 육을 가지고 성자의 생각을 행한다.

31. 자기가 스스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항상 성자를 증거하며, 그의 사역자로 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32. 자기를 보낸 자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고 나타나면, 보내 준 자가 안 쓴다.

33. 세상에서 자기를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 스스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이단이다. 인간 스스로 행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두 성자의 몸이 되어 쓰여지는 사역자다.

34. 자기를 재림주라고 한 자들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꼴들을 보아라.

35. 재림 때는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시어 시대 합당한 자의 육신을 신부로 삼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듯 하신다. 모세는 보이는 영도자요, 구원자였다.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36. 초림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성자와 함께 나사렛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 육신을 쓰고 약속대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과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에게 메시아 사명을 주고 그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나사렛 예수님은 초림 때 메시아가 되어 신약 구원역사를 펴 나갔다.

37.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약속하시고 원하시는 역사는 삼위일체가 육신 쓰고 이루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 자체를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성자로 본다. 이들이 사이비요, 이단이다. 자신도 그같이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도 그같이 생각하고 따랐다. 그러한 종교는 다 무너지고 망했다.

38.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가 보낸 자는 땅의 사명자요, 삼위일체가 쓰시는 육이다. 이를 알고 땅의 사명자를 따라서 삼위일체를 믿으면 된다.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보이는 육의 사명자는 중보자요, 증거자요, 인간으로서 인자요, 사람의 아들이요, 마치 백성 중에 뽑아서 대통령이 된 것같이 하늘 앞에 뽑혀서 구원의 왕이 되었다.

2.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에스더 등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신 중심인물들과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님이 쓰신 땅의 구원자들이다.

3. 그러나 신약 때 성자의 육으로 쓰인 나사렛 예수님은 구약의 인물들과는 다른 차원의 구원자다. 메시아 사명이다. 지방 장관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4. 재림 때도 성자는 왕 같은 제사장, 곧 신부를 쓰고 오신다.

5. 초림 때는 초림주, 재림 때는 재림주로서 모두 성자이시다.

6. 인간은 땅을 면치 못한다. 왕의 명을 받았어도 왕 자체가 아니다. 왕의 신하요, 대행이다.

7.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성자가 쓰는 몸이 되었더라도 그가 성자 본체는 아니다. 성자 본체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창조자요, 삼위일체의 신이시다. 성자 본체는 지구요, 성자의 육이 되어 쓰임 받는 자는 지구의 모래 한 알과 같다. 성자가 쓰실 때만 그 육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심을 행하신다.

8. 아무리 성자가 쓰셔도 인간이니 피곤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고통도 있다. 고로 자기가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만들어야 건강하게 쓰여진다.

9. 호랑이와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과다. 그러나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마치 호랑이가 고양이를 쓰듯이, 성자는 인간 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를 그의 몸으로 쓰신다. 고양이는 약하지만, 만일 어느 동물이든지 고양이를 괴롭히면 호랑이가 고양이를 통해서든지, 다른 동물을 통해서 모두 다스린다.

10. 토끼가 고양이를 괴롭히기에 고양이가 호랑이에게 이 사실을 고했다. 그러면 호랑이가 고양이 뺨을 때리면서 “토끼를 이같이 대해 줘.” 한다.

11. 고양이는 호랑이에게 맞고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토끼한테 쫓기던 것을 생각하고, 토끼를 만나 그 뺨을 때렸다. 토끼는 고양이에게 맞고 너무 아파서 도망갔다. 고양이는 온종일 토끼를 쫓아다녔다. 밤에도 밤잠을 안 자고 날이 새도록 쫓아다녔다.

12. 자기가 다스릴 자는 남의 힘도, 성자의 힘도 필요하지 않다. 자기 책임분담이다.

13. 성자와 통하여라. 먼저 기도하고, 그 심정을 알도록 배우고, 그다음에 성자가 자기 몸을 쓰고 행하도록 통해야 한다. 그래야 마치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와 일체 된 사랑을 하는 것과 같다.

14. 전능하신 성자와 하나 되고 통하려면, 그 몸이 되어 쓰여져라.

15. 인간의 뇌가 자기 온몸에 깔려 있는 신경 세포를 쓰고 육신을 쓰고 활동하듯이, 성자는 자신이 창조한 지구촌에 짝 짝한 인간들 중에서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16.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지구 세상 전체를 선하게 만들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악한 자들을 안 없애시냐?” 한다.

17. (주 편) 이 세상은 시험장이다. 노력하여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세상이다. 자기가 노력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기가 변화되어 하나님과 나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도우신다.

18. 자신이 악하게 살았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선하게 고쳐야 된다.

19. (주 편) 악한 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두고, 하늘 앞에 선을 행하며 전능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고 그 영혼까지 멸해 버리시니 기도하고 간구하여라.

20. 성자 주님께 물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을 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서 사탄을 멸해 버리시지, 왜 그냥 놔 두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게 하십니까?” / 성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 나 성자를 보내시어 땅에서 세운 자와 함께 뜻을 펴신다. 고로 인간이 그 말씀을 듣고 절대 하나님을 믿고, 나 성자를 믿고,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사탄 마귀를 멸해야 된다.” 하셨다.

21.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장 루시엘이 이를 반대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야 되기에 반대자를 천국에서 쫓아내셨다. 그가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인간의 창조로 인해 생긴 불순물로서 인간을 괴롭히니, 때와 때와 노폐물과 배설물을 버리듯 버려야 된다.

22. 루시엘이 인간 창조를 반대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장 루시엘을 버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에 루시엘은 사탄이 되어 인간에게 조건을 붙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 고로 인간이 잘해서 사탄이 되어 루시퍼로 변한 루시엘과 그와 함께 타락된 사탄들을 다스리고 멸하는 책임을 해야 된다. 고로 ‘사탄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진리에 순종함으로 인간이 할 일이다.

23. 어떤 한 남자가 있다 하자.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다. 그 남자는 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친구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자를 키워서 결혼하여 같이 산다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를 반대했다. 이에 그 남자는 반대하는 친

구를 쫓아냈다. / 그 후 남자가 여자를 키워 결혼하여 같이 사니, 친구는 여자를 유혹하여 그 남자와 같이 못 살게 했다. / 그 유혹을 뿌리치고 행해야 될 책임은 여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 반대자를 다 스려야 된다. 여자 때문에 생긴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고로 여자가 절대 자기를 키우고 사랑한 남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고 그와 일체 되어 반대자를 물리쳐야 된다. 남자에게 “왜 저 반대자를 못 없애지요?” 하면 안 된다. 반대자가 그 남자한테는 무서워서 조건을 못 붙이고 여자에게 “너를 사랑하느라고 나를 버렸다.” 하기 때문이다.

24. 하나님과, 사탄 루시퍼로 변질된 천사장 루시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러하다.

25. 하나님께 왜 루시퍼와 사탄들을 안 없애느냐고 하지만 말아라. 인간 창조로 인해 생긴 사탄이니,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일체 되어 사탄을 물리쳐야 될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26. 천사장 루시엘이 인간 창조를 반대했으나 하나님은 천사들로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니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했다. 그러나 천사장 루시엘이 끝까지 반대하니, 결국 천국에서 내쫓으셨다.

27. 인간을 얻기 위해 인간 창조를 반대한 자를 쫓아냈으니, 인간이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 창조를 반대한 루시엘은 사탄이 되었으니, 사탄이 꾀면 그 말을 듣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사는 책임을 해야 된다.

28.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 루시엘은 사탄 루시퍼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꾀고 유혹하며 해를 주었다.

29.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이 이를 깨닫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일체 되어 사탄과 싸워 이기는 책임을 해야 된다.

30. 하나님께서 성자와 함께 땅의 구원자를 통해 섭리역사를 펼 때도 또 사탄 마귀는 인간을 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반대하여 결국 쫓겨남을 당한다. 이에 더욱 하늘이 세운 자를 가까이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악평한다. 사탄은 에덴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 모두 하나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체 되어 사탄과 인사탄을 이겨야 된다. 절대 믿고 따라와라.

<2012년 6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의문을 품으며 이해하지 못한다.

2.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혀 아니다.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4.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사탄을 못 멸하시고, 세상 악을 못 멸하시고, 선의 세계를 못 만드시나?” 하고 질문을 던진다. / 질문 자체가 잘못 되었으니 의문이 안 풀린다.

5.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행할 일을 다 행하신다. 다만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 못 해서이다.

6. 악도 인간 때문에 생겼고, 사탄도 인간 때문에 더 번창되고 있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어야 악을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구원자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순리적으로 천국에 가게 된다.

7. “전능자 하나님인데, 왜 이리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펴시나? 다 뒤엎고 일순간에 선의 세계만 만드시지?” 한다. / 질문이 틀렸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니 그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이큐 100~120 안에 존재하는 존재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12조~2100조가 넘는 아이큐를 가지고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8. “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악한 세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선하게 못 만드시지?” 한다. / 모르는 자의 질문이다. / 하나님은 인간 자신이 메시아를 믿고 순종함으로 자기 영을 만들어서 자격자만 천국에 가도록 창조하셨다. 세상을 뒤엎고 선하게 되는 것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간이 할 일이다.

9.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같이 행하여 악을 다스리고 사탄을 멸하여 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책임’을 주어 인간을 창조하셨다. 마치 시험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푼 합격자만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책임을 함으로 자기를 만든 자만 쓰신다. 마치 시험 문제를 놓고 ‘왜 선생님이 시험 문제의 답을 안 가르쳐 주지?’ 하듯이, 인간도 하나님께 ‘왜 사탄과 악을 안 멸해 주시지?’ 하며 질문한다.

10. 구세주 성자의 말씀으로 세상에 보낸 구원자와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생각·정신·마음으로 만들어 인간으로서 하나님같이 살게 하여, 자기 영혼을 하나님 형체로 변화시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11. 전능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해 놓으시고 어떻게 뜻을 정하셨는지 그것을 알고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라.

12. 인간이 의문을 품고 물어보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13. 한 임금이 아름다운 작품을 떠서 궁에 각종 작품을 놓기를 원했다. 백성들 중에서 임금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실력껏 작품을 만들어 온 자들의 작품만 받고, 그 사람도 궁에 살게 했다. / 그런데 이를 모르는 백성들은 “왜 임금이 오랫동안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며 작품을 만들게 하느냐? 전문가 100명을 데려다 놓고 기계로 돌을 깎고, 쇠로 주물을 떠서 몇 년 만에 만들고 말지.” 한다. 임금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백성들이 각자 자기 것을 만들게 해야 된다. /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자와 땅의 구원자와 함께 자기를 만들어 온전한 자만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도 하나님이 정하신바 뜻대로 하는 자만 뜻을 이루게 하셨다. / 메시아를 땅에 보내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할 일이다.

14.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 의문을 품고 묻는 자들이 있는데, 그 물음 자체가 잘못 됐다.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겨우 자기가 쓸 것을 만들어 놓았다.

15.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라.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

16. 성자 주님께 묻기를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아예 멸해 버리지, 왜 땅에서 활동하게 하여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성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했다. / 이에 성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 성자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이는 인간을 택하여 구원자로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 사탄의 주관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절대 사탄과 상관없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절대 하나님과 나 성자를 사랑하고 살면, 마치 가시덤불 속에서 나온 자가 그 가시나무와 상관이 없듯이 사탄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하셨다.

17.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보내신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멀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육과 영이 사탄 주관권에서 살면서 “왜 하나님은 사탄을 안 없애느냐?” 한다.

18.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온전히 하늘나라 구원을 받고 살면, 인간이 사탄과 악을 다스려 없앤다.

19. 인간 책임으로 악과 사탄을 멸해야 된다.

20.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려 하실 때, 처음에 천사장 루시엘이 반대했다. 고로 하나님은 루시엘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쫓아내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루시엘은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인간을 유혹했다. 고로 사탄 루시퍼가 되었다. / 고로 인간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을 멸해야 된다. 만일 하나님이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의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천사 때문에 인간은 창조되지 않았다. 이를 생각하면 정말 섬뜩하다.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사탄 루시퍼를 불신하고 멸해야 된다.

21. 사탄 루시퍼는 처음에는 천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을 반대했다. 고로 천국에서 지상으로 쫓겨났다. 그러나 지상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고로 사탄이 되었다. /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여 조건을 세워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탄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22. 하나님과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안 믿는 자들과 사탄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고 막는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는 것을 반대한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 루시퍼의 말을 듣고 사는 자다.

23. 사람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영이 하늘의 형체로 변화되고 만들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 순리적으로 천국에 가게 창조해 놓으셨다.

24.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정하신 뜻이 있다. 인간이 그것을 행함으로 의문을 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자기 악도 멸하고 사탄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 이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그 육신의 행위대로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이나 무저갱이나 악영계에 가게 된다. /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제대로 못 하면 그 육신의 행위대로 그 영이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에 해당되는 각종 영계로 간다. 거기서 자기 영이 온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의를 쌓고,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세운 뜻을 전해 듣고 뜻을 이루며 자기 영을 만들어야 된다.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왜 전능자 하나님인데, 자기가 가난하고 약하고 쓰러질 때 안 도와주느냐?” 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해 준 만큼만 도우신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전능자 하나님은 행한 대로만 도우신다. 이것이 천륜의 법칙이다.

3.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할 것도 안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을 당했으면서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지?” 한다.

4. 자기가 미련하고 무지하게 행해 놓고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짓값으로 인하여 계속 고통을 받는다.

5.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보낸 땅의 구원자도 온전히 믿고 살아가.

6.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연단으로 받고, 혹은 짓값으로 받는다.

7. 사탄보다 자기가 더 자기를 고통 받게 하는 무서운 존재다. 자기 행위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8. 주님께 묻기를 “기도할 때 언제 조는지 자는지도 모르게 졸고 자니 어떻게 합니까?” 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졸음도 잠도 깊이 들어가면 모르니, 졸음과 잠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기도하다 졸음이 오고 잠이 올 때 그때 막아라. 모든 일도 깊이 진행됐을 때는 모른다. 그러니 시작됐을 때 막아라. 죄 짓는 것도, 기타 문제도 깊이 진행되면 그때는 못 막는다. 고로 깊이 진행되기 전, 시작되는 순간에 불 끄듯 하여라.” 하셨다.

9. 잠이 오는데 그대로 하던 일을 진행하면 결국 기도하다가 자고, 성경 읽다가 자고, 공부하다가 자게 된다. 먼저 잠에서 깨야 된다.

10. 어떤 문제가 조금 진행됐을 때 즉시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잔디밭에 불이 타들어가고 밀림으로 불이 타들어가듯 해서 그때는 막을 수가 없다.
11. 인생이 사망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조금 사망으로 갔을 때, 그때 즉시 더 이상 가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깊이 빠지면, 어느새 가버렸는지 자기도 모르게 빠져 깊은 잠에 들듯 하게 된다.
12. 자기 죄와 악을 소홀히 하면, 언제 지옥까지 간지 모르게 자기 영이 지옥에 가서 살고 있고 자기 육도 지옥에 해당하는 사망권에서 살고 있다.
13.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는 그 한계선을 잘 안다. 그러니 마치 구출하는 자의 말을 듣고 물과 불에서 빠져 나오듯, 그의 말을 듣고 사망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14.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보낸 땅의 구원자를 만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15. 보통해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는 구원은 못 받는다.
16.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전심을 다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17. 남녀가 사랑하는 데는 100% 사랑이지, 99%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100% 사랑하며 그 말을 100% 행해야 된다.
18. 100% 하고, 100% 받는 것이다.
19. 가령 그날 돈을 100만 원 벌어야 그 돈을 가지고 100만 원 짜리 비행기 티켓을 사서 그날 밤에 외국에 간다고 하자. 1시간에 일하면 10만 원을 준다면, 10시간을 일해야 100만 원을 번다. 10시간 동안 100% 일해야 100만 원을 벌어서 티켓을 사서 외국에 가게 된다. 구원도 이같이 100%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
20. 구세주와 일체 되어야 100% 구원을 얻는다.
21.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려는데, 여자는 남자에게서 100m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자. 여자가 남자의 몸에 완전히 닿도록 가까이 가야 된다. 99m 가서는 사랑하지 못한다. 몸도 마음도 1cm도 안 떨어지고 하나 되어야 사랑한다. 성자로 인해 이루는 구원도 그같이 하는 것이다.
22. 마음과 행실이 메시아와 일체 된 자만이 구원을 이루었다.
23. 사랑은 남녀의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진실하고 온전한 '행실'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 마음과 행실이 함께 되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구원도 구세주와 마음과 행실이 일체 되어야 이루어진다.
24.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행동이 함께 있어야 된다.
25. 현대인들은 구원을 반쯤 받고 산다. 마음만 구원, 혹은 행동만 구원이다.
26. 진정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고, 진정한 행동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고로 반쪽 구원이다.
27. 마음은 애가 타는데 행동은 하지 못하고, 또 행동은 하는데 마음은 진실 되지 않고 불타지 않는다. 고로 반쪽 구원이다.
28. 성자 주님이 말씀하시니, 각자 자기를 살펴보아라. 다 고치고 행해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29. 100% 한 자만 100% 구원을 이룬다. 100% 기도, 100% 진정한 마음, 100% 진정한 행동이다.

<2012년 6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마음 알고, 심정 알게 된다.
2. 기성이 섭리역사를 불신했어도 불신한 자들만 불신했지, 그 후손들인 젊은이들 중에서는 불신하지 않은 자들도 많다. 고로 의식 말고 복음을 전해 주어라.
3. 사랑하는 자의 말대로 행해야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심정과 마음을 더욱 잘 알게 된다.
4. 기다리는 자는 시대마다 기다리는 형제들 중에서 온다. 삼위의 신은 기다리는 자들 중에서 하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뽑으시고, 그를 육으로 쓰면서 그를 통해 말씀을 주면서 오신다.
5. 땅의 모든 자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다. 고로 삼위의 신도 육신 가진 자를 통해서 와야 사람들과 통한다. 고로 육신 쓰고 오신다.
6. 육은 육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통한다.
7. 육은 육을 가진 땅의 사명자와 통하고, 영은 하늘에서 오신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통한다.
8. 신약의 계시와 예언이 이루어지면 성약역사다.
9. 어느 시대든지 아는 자들만 믿고 역사에 참여했다. 모르는 자들은 믿지도 않았고 역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10. 알아도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되려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고 시대 보낸 자와 함께해야 된다.
11.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다렸던 백마 탄 초인을 사랑하며 살아도 모른다.
12. 이 시대에 백마 탄 초인은 신부를 타고 간다. 고로 백마를 태운 신부가 몰라도 갈 길은 가니, 신부가 깨달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갈 뿐이다. 백마를 태운 신부가 깨달으면 골 빈 생각을 안 하고 즉시 천국의 삶을 산다.
13. 어떤 사람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묻기를 “주님, 제 꿈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했다.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지금 네 꿈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르는구나.” 하셨다. / 그는 다시 기도하기를 “제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고생을 언제 벗어납니까?” 했다.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고생하면서 지금 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꿈이 실현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고생 떠나면 꿈도 끝나서 떠난다.” 하셨다.
14. 30대의 남녀가 주님께 묻기를 “우리의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20대에 네 꿈이 이루어져서 30대가 된 지금 그 꿈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셨다. 이들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맞다고 하며 서로 껴안고 좋아했다.
15. 어떤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며 묻기를 “저의 행복은 언제쯤 옵니까?” 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행복은 지나갔고, 그 행복으로 시련을 이기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하셨다. 그는 가만히 생각하더니 지난날 자기가 누린 행복을 떠올리며 맞다고 하며 그 행복을 다시 연상하며 힘을 내고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현재의 시련을 발로 밟고 히프로 갈아뭇개 버렸다.

16. 주님은 “지난날을 생각하여라.” 말씀하셨다.

17. 행복은 간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은 또 온다. 성자는 ‘행복’이다. 성자의 육은 ‘행복 바구니’다.

18. ‘완전한 자’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지금 완전하게 행하는 자이며 / 둘째, 아예 완전하게 건물을 짓고 끝내듯 아예 완전하게 끝내 버린 자다.

19. 구원자는 항상 둘로 존재한다. 한 명은 근본자이신 전능하신 성자요, 한 명은 성자 본체가 손발로 쓰는 자로서 육신을 가진 사역자다. 항상 두 명이다. 6000년 성경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그러했다. 그 시대에 따라 중심인물 시대 - 사사 시대 - 왕 시대 - 선지자 시대 - 메시아 시대로 진행되어 왔다.

20. 수천 년 동안 차원 높여 역사를 펴 왔어도 모른다.

21. 사람이 아는 데까지만 알지, 모르는 것은 한 치 앞도 모르고 한 치 뒤도 모른다.

22. 마치 물고기가 물과 함께 살듯이 성자 본체는 그가 시대에 택한 자, 곧 성자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육과 함께 사신다.

23. 성자께서 자기가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 최고로 하는 일은 자신의 말씀을 전해 주는 일이다. ‘말씀’으로 사람의 육도 영도 하늘의 사람으로 재창조한다.

24.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낸 자다. 고로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넣어 주어 그들이 사랑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신다. 고로 하나님이 지구 세상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게 하신다.

25.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시고,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다. 이제는 우리 인간이 성자께서 땅의 사명자를 통해 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끌려 올라간다.

26.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성자의 움직임을 땅의 사명자를 보고 알아라. 성자는 그와 같이 행하시면서 시대의 조건을 세우신다. 조건은 값이다. 그 조건, 곧 그 값으로 시대의 생명들을 사고 구원하는 것이다. - 왕을 사랑하는 자들이 왕이 명하여 행하는 신하를 몰라보고 갓은 불만 불평을 한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 자기중심,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사고를 다 버리고 다시 보라. 잘못 보고 행한 후에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을 찢고 자기 머리통을 깨부수며 후회한다. -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경기장에 안 나왔다고 해서 자기편이 열심히 뛰는데도 욕하고 야유한다. 옷만 바꿔 입고 변장해서 뛰고 있다. 상대가 알면 모두 막고 공격하기 때문이다. - 모르니까 오직 주의 뜻대로 해 달라고 말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따라라. - 나는 나사렛 예수님을 사랑하며 전심으로 따랐다. 그랬더니 결국 성자 본체를 사랑하고 따른 격이 되어 홀연히 이 시대 성자의 그릇으로, 성자의 몸으로 쓰임 받게 되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 의지, 자기중심은 구원길을 파괴한다.

27. 성자를 믿고 그 보낸 구원자를 믿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믿었으면 절대 사랑이다. 절대적인 믿음 다음에 절대적인 사랑이 안 되면, 마치 공중을 나는 헬기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지는 자와 같이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되고, 점점 늘어지는 여름철 엇가래에 매달린 자와 같이 점점 늘어져서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된다.

28.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던 유대 민족은 보이는 형제 중에 온 하나님을 몰라서 못 맞았다. 이 시대도 하늘을 쳐다보며 예수만 기다리니, 보이는 육을 통해 오신 성자를 못 맞는다.

29. 꽃을 통해 열매를 얻듯이, 땅의 육을 가진 사명자를 통해서 성자를 얻게 된다. 진실로 맞아야 한다.

30. 육으로 맞고, 영으로 맞기다.

31. 성자께서 욱을 보내셨으니, 그 욱을 보고 자기 욱도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영도 온전히 만들어진다.
32. 성자가 보낸 자를 구원자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는 하나님이 낳은 자가 되고, 복음으로 낳은 자가 되며, 하나님과 성자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서 낳은 자가 그 시대에 해당되는 생명이 있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33. 성자는 보낸 자를 통해서 휴거 준비를 시키신다. 보낸 자를 통해 성자를 알게 인도하시어 그 '욱'은 보낸 자와 함께 땅에서 성자의 뜻을 따라 휴거의 삶을 살고, 그 '영'은 성자의 영 재림 때 천국으로 휴거된다.
34. 성자와 온전히 주고받기다.
35. 신령하여라. 그래야 신령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함을 안다.
36. 하나님과 성자와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는 신령한 자다.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리듬이 깨졌다는 것은 그 행하던 선에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2.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거기서 내려왔다는 것이다.
3. 다시 올라가야 된다.
4. '계시'에는 욱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고,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 있다.
5.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사렛 예수님을 불렀을 때 계시를 주니 나사렛 예수님이 계시해 준 것으로 믿는다. 역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6.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든지, 모세나 다윗이나 성경의 어떤 인물을 부르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대답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7. 구원의 총책임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거의 다 행하신다. 다만 성자께서 성자의 대역을 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8. 나사렛 예수님을 부르면,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
9. 지구촌 수십억의 인구가 나사렛 예수님을 1초도 여유가 없이 부르며 부탁하니, 다 대답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욱과 영은 아무리 메시아 사명을 가졌다 해도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다 대답하시고 행하신다.
11. 땅에서 난 인간은 욱신도 신이 아니다. 그 욱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살아도 그 영도 전지전능한 신이 될 수 없다.
12.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 행하신다.
13. 이 욱의 세상에서 인간의 욱신은 한계 이상을 못 한다. 이와 같이 그 영 역시 영계에서 살아도 영계의 한계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계 이상을 못 한다.

14. 오직 삼위일체만이 천지 만물과 인간과 영계를 창조하신 만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신이다.

15. 자기 영도 자기 육신과 같다. 자기 육신이 지구 세상에서 살면서 만나고 싶은 자가 있는데, 그는 수백만 리 떨어진 산 너머에 살고 있다 하자. 그에게 아무리 소리 지르며 말해도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오는지, 한번 불러 보아라. 그 곳까지 가서 이야기하든지, 특별히 통하는 전화기가 있어야만 그것을 통해 통하게 된다. 영들끼리도 그러하다.

16. 영들은 영계에서 살되 자기 육신을 쓰고 살고 있고, 육들은 육계에서 살고 있다. 영계에서 사는 영들이 육계에서 사는 육들을 불러도 모르고, 찾아도 모른다. 영도 육도 한계선 안에서 활동한다.

17. 육신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이 와야 만나게 된다. 이와 같이 영들도 어떤 영을 만나려면 그 영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그 영이 와야 만나게 된다.

18. 육 만나기 어렵듯이 영 만나기도 어렵다. 모두 전능하신 성자께서 사역자를 보내시어 합당하면 만나게 해 주신다. 그러나 거의 대역을 쓰시고 대답하고 끝난다.

19. 자기 영이 육을 쓰고 살아도 영계에서 산다. 그리고 육은 육계에서 산다. 그러니 자기 영과 성자와의 차이는 어떠하겠느냐. 그 차이는 별빛과 태양빛이요, 호롱불과 공설 운동장에 켜진 전깃불과 같다. 또한 자전거와 자가용이요, 자가용과 비행기요, 비행기와 우주선과 같다. 성자 본체는 직접 보지도 못하고 보여 주지도 않는다. 고로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여 깨달음으로 보고, 느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행함으로 느껴 보면서 상상해 보아라.

<2012년 6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육을 보고 믿는 것이다.

2. 자기 육이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보아라. 그러면 자기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3. 자기 생각은 안 보인다. 자기 생각의 실체는 자기 육이다. 고로 자기 육을 보고 자기 생각을 알고, 자기 영을 보는 것이다.

4. 자기 영도, 타인의 영도 보는 것이 아니다. 육을 보고, 그 육의 행위를 보고 자기 영도, 타인의 영도 보는 것이다.

5. 육은 제2의 보이는 영이다.

6. 자기 육체는 자기의 보이는 영체다.

7. 자기 육체·마음·정신·생각·혼은 자기의 보이는 영체이기도 하다.

8. 자기 영체는 자기 육체를 기본으로 닮았다.

9. 자기 영체는 자기 성격·마음·정신·생각·행동을 기본으로 닮았다.

10. 자기가 얼마나 성자의 마음을 닮고 성자의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 자기 영도 거의 동일한 성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11. 과일을 먹으면 과일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작용하고,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작용한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그대로 영에게 흡수되어 작용한다.

12. 사람은 자기 ‘육체’ - 자기 육체와 정신과 혼이 일체 된 ‘혼체’ - 그리고 자기 ‘영체’로 존재한다.

13. 육체와 영체는 형체와 모양이 있게 존재한다. 그러나 혼체는 마음과 생각으로서 육체도 아니고 영체도 아니다. 형체가 없다. 영계에서 혼체를 보면 육신과 마음과 혼이 합성되어 보이는 존재체다.
14. 자기 육신이 죽으면 자기 혼체가 자기 영체와 결합된다. 마치 난자와 정자가 결합되듯이 결합된다. 이는 자기 생각과 행위의 결합이다.
15. 육체는 기구다. 정신·마음·생각·혼은 육체의 속사람 격이다. / 육체와 정신·마음·생각·혼은 겉사람이라면 영체는 속사람이다.
16. 혼체와 영체는 다르다. 혼체는 육체에 속한 존재체이고, 영체는 아예 영으로 존재한다.
17. 자기 혼체는 거의 100% 자기 마음과 정신과 육의 행실대로 한다.
18. 영체와 혼체는 삶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19. 육신이 잠잘 때나 기도할 때는 육신이 활동하지 못한다. 이때는 자기 육체와 마음·정신·생각·혼인 정신체가 결합된 혼체가 영적인 초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나 제2의 육체가 되어 행한다. 이 혼체는 자기 육체와 영체 사이의 존재체다. 이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타인도 역시 그런 현상에서 만난다. 영체와 혼체는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나 육체와 혼체와 영체는 각각 다르다.
20. 혼체인지, 영체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21. 꿈에 어떤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했다. 생시에 그 사람을 만나서 “너도 꿈에 나를 만났니?” 하면, 모른다고 한다. 영적인 초자연적 현상으로 만났기에 육체는 모른다. 다만 꿈에서 본 대로 그 육체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자기만의 계시라고 보면 된다.
22. 자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혼적인 현상에서나 영적인 현상에서 그 사람을 만나 보고 좋게 지낸다. 실제로 그 육체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도 좋아하여 혼적 영적 현상에서 그 사람과 좋게 지낸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만 좋아서 그와 같이 보이기도 한다.
23. 꿈 계시는 자기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현상을 다른 사람으로 현상화해서 보여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과는 상관없는 것도 있다.
24. 꿈 계시는 비유의 대상으로 쓰여진다.
25. 성자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그 모습을 못 본다. 또 보여 주지도 않으신다. 그러니 주님은 꿈에 한 남자나 한 여자로 나타나 보이시며 사랑해 주신다.
26.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꿈 계시는 주님과 관련되어 보인다.
27.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지 못하시니, 우리에게 성자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입력되어 있기에 그 모습을 쓰고 나타나신다.
28. 성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지 못하시니, 한 사람을 보이며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다. 그를 사용하신 것이지, 그와는 상관없다.
29. 자기가 처한 현실과 자기가 생각한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비유로 꿈에 보여 주시고, 자기가 생각한 자를 타인으로 꿈에 보여 주신다.

30.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꿈에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 그를 주연으로 삼고 보여 주신다. 계시다. 이와 같이 이리하다 함이다.

31.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꿈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사랑해 준다. 실제로 그 사람과 자기는 상관없다. 현실에 자기가 사랑한 성자 주님이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32. 어느 때는 자기가 생시에 사랑하는 자와 실제로 대면하여 만나기도 한다. 이는 영체가 아니고 혼체다. 혼체로 그 사람을 보여 알게 한다.

33. 기도하다가 본 환상들은 혼체의 현상이 많다.

34. 꿈에 한 형제가 나와 내게 말하기에 실제로 그를 만나서 말해 보니 꿈과 상관이 없었다. 성자 주님께 물어보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꿈에 그를 주연으로 쓰고 비유로 썼을 뿐이다. 그 비유의 실상은 나 성자였다.” 하셨다.

35. 성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로 나타났을 뿐이지, 실상은 내가 행한 일과 네가 행한 일을 보인 것이다. 비유다. 꿈속의 주연은 대역일 뿐이다. 대역의 본 주인이 중하다. 흔히 사람들은 대역으로 쓰고 비유로 쓰는 자만 쳐다보고 생각한다. 대역의 본 주인을 만나라. 비유의 근본을 깨달아라. 나 성자가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 나사렛 예수만 찾지 말고, 그를 쓰고 나타난 전능자 나 성자를 찾아라.” 하셨다.

36. 어느 때는 상대 입장에서 보여 주지만, 거의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보여 준다. 그런데 그 본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역으로 다른 자를 보이며 이와 같이 이리하다고 깨닫게 한다.

37. 대역을 실제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그 대역을 자세히 보고 그를 통해 네가 사랑하는 성자를 깨닫고, 그 대역의 주인을 알아라.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잘못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

2. 잘 생각할 때 이해가 된다.

3.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니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불신하고 안 믿는다.

4. 인간은 아주 연약하고 미약하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상대체만 되어 주면 아주 강해진다.

5. 강자와 하나 될 때 약자도 강자가 된다.

6. 선은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7. 악은 끝까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8. 악은 회개해도 선이 안 된다.

9. 선은 회개하면 선이 된다.

10. 악은 몸의 때와 같다. 몸의 때는 아무리 씻고 깨끗이 해도 살이 안 된다. 이와 같이 악이 아무리 회개해도 선이 안 된다.

11. 악은 밥의 돌 같아서 회개해서 버려야 된다.
12. 악은 양 속의 염소와 같다. 양 속의 염소는 쪼개내 버리듯, 자기에게서 악을 쪼개내 버려야 된다.
13. 악은 썩은 과일과 같다. 과일들 중에서 썩은 과일은 쪼개내 버리듯,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쪼개내 버려야 된다.
14.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악인은 쪼개내 사망으로 버리신다.
15. 자기가 자기를 악인으로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선인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악은 버리시고 선만 취하신다.
16. 악은 개인에게서도 회개하여 버리고, 전체에서도 회개하여 골라서 버려야 된다.
17. 개인적으로 자기 속의 악을 회개하여 버리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듯이, 모두 회개하여 악한 자를 쪼개내 버리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다.
18. 밥하기 전에 쌀의 돌을 가려내 버리듯이, 자기 속에서나 섭리사 속에서나 악은 모두 버려야 된다. 악인들은 버려야 된다.
19. 사상의 불구자는 뇌 자체가 불구자같이 되어 있다.
20. 악은 회개하여 버려야 된다.
21. 할 일을 하는 것이 악을 버리는 것이다.
22.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체 되는 것이 악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23. 악을 안 버리면 악 속에서 살게 된다.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인이 그 기구를 사용하니까 기구만 보는 자들은 그 기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신은 안 보이고, 사람을 쓰고 그의 마음이 되어 신의 능력으로 사용만 하신다.
3. 집주인이 그때마다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듯,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시다.
4. 뇌의 주인의 마음이 지체의 기구를 사용한다.
5. 전능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한 지체로 보시고,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6.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은 자를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신다.
7. 사탄이 쓰기에 합당한 자는 사탄이 필요할 때마다 쓴다.
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민족을 가지고 때마다 필요한 대로 어느 때는 몽둥이로 쓰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돕는 데 쓰기도 하신다.
9. 자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세히 보아라. 성자 예수님이 쓰는지, 자기가 쓰는지, 남이 주관하여 쓰는지, 사탄이 쓰

는지 보아라.

10. 성자 예수님이 귀하 쓰는 자가 되어라.

11. 매일 자기를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라.

12. 오직 주님께만 쓰여져라. 사탄도, 남도, 자기도 자기를 쓰게 하지 말아라.

13. 전능자 성자가 귀하 쓰는 자는 천국에서 더 귀하 쓰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14. 마음의 상처는 머리의 상처다.

15. 서로 부딪히면 상처 난다.

16. 차끼리 부딪혀도 서로 상처 나고, 사람과 차가 부딪혀도 사람만 상처 나는 것이 아니라 차도 상처 난다.

17. 인간과 하나님이 부딪혀도 인간도 하나님도 상처를 입는다.

18. 마음의 상처는 머리의 상처다. 머리는 뇌요, 즉 마음이다.

19. 전능자 하나님은 그의 사명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 주신다.

20. 마음이 강철 같은 자는 부딪혀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21. 연단된 몸은 부딪혀도 아프지 않듯이 연단된 마음과 정신도 그러하다.

22. 꿈에서 보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남자가 있는데 둘 다 이마에 벌겋게 상처가 있었다. 주님께 묻기를 “두 사람의 이마끼리 부딪힌 것입니까?” 했다.

23. 이에 주님은 꿈을 풀어 주셨다. /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 갔기에 드러날까 봐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괴로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두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는 것으로 보여 계시해 주신 것이었다.

24. 또 다른 한 사람은 도둑질을 당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속상하고 분하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두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는 것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25. 영계에 가서 인간이 행하고 당한 모든 상황을 보면 그 영의 몸에 어떤 상처가 나 있는 모습으로 보여 주시거나, 그에 해당되는 각종 모습으로 보여 주신다.

<2012년 6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죄를 지은 자는 그 영이 죄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보이고, 신앙의 불구자는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대로 각종 불구자가 되어 다닌다.

2. 때가 되었는데도 신앙이 크지 않은 자는 그 영이 난쟁이가 되어 불구의 몸으로 다닌다.

3. 육계에서 돈도 많고 명예도 크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냥 보기에는 큰 지도자로서 모두 부러워하는 자다. 그런데 영계에서 그 영을 보니 난쟁이로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며 다니고 있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적으로는 컸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컸기에 그러하다. 그 모습을 고치지 못한 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

섰다.

4. 육계에서 신앙의 모든 것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잘한 자는 영계에서 그 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빛이 났다.

5. 육의 겉모습만 보고서는 그 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 / 그 육의 행위를 보면 그 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

6. 육과 영은 각각 쪼개서 봐야 된다.

7. 어떤 영은 거지 옷을 입고 냄새를 풍기고 짐승같이 다닌다. 알고 보니, 그 육신의 행위가 선하지 못하고 악한 자였다. 고로 그 영의 모습도 거지와 같고, 그 영이 사는 위치와 환경이 더럽고 어둡고 냄새가 났다.

8. 어떤 사람의 육은 예쁘고, 옷도 깨끗이 입고, 똑똑하게 생기고 그냥 보기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그 영을 보니 못생겼고, 어둡고, 옷이 없어 거의 벗고 다니고, 살이 없어 바싹 마른 멸치 같은 모습이었다. 그 육신이 육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보고 그 육의 상태를 식별한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 그 행위에 따라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거하게 되는데, 그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여지없이 그런 세계로 갔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결국에는 영원히 흑암에 처하게 된다.

10. 빛나는 영은 어둠에 가지를 않는다.

11. 구원받은 선한 영은 우아하고 표가 난다.

12. 천사와 같이 다니는 영들은 구원받은 영들이다.

13. 영계에서 영들은 보면, 자기 육신의 행위 그대로 영의 몸에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자기 육신의 행위 그대로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있다. 육이 행함으로 고치지 않으면 영은 그 모습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처해 있다.

14. 육신이 예뻐도 영을 보면 그 속마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니 정말 마음이 안 끌린다. / 어떤 사람의 육신은 보통인데, 그 영을 보면 그렇게도 아름답다. 그 육신의 온전한 행위 때문이다.

15. 영계를 보면, 육신이 그동안 선악 간에 마음먹고 행한 것을 그 영이 그대로 지니고 다니며 그 육신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대로 보인다.

16. 흘랑 벗고 부끄러워서 앉아 다니는 영도 있다. 얼굴을 숙여도 누군지 다 안다.

17. 어떤 영은 개똥과 사람의 배설물을 거리에서 집어먹고 다니고 있었다. 왜 저러냐고 주님께 물으니, 주님은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더러운 행위를 하는 자의 영이다.” 말씀하셨다.

18. 어떤 영은 눈이 황소 눈 같고 얼굴은 괴이한 짐승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거의 다 알아볼 정도였다. 눈에 핏발이 서서 빨갳다. 왜 저런 얼굴이냐고 주님께 물으니, 주님은 “그 육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평하고 계획적으로 악하게 행하는 영들이다.” 하셨다. 무저갱의 짐승에 속한 영의 모습이었다.

19. 어떤 남녀의 영은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온몸 여기저기에 고름도 나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서로 좋아서 껴안고 키스하며 사랑하고 있었다. 그 영이 그 육신의 행위를 그대로 입고 살고 있는 것이었다.

20. 어떤 남자의 영은 몸에 짐승같이 털도 많이 나고, 더럽고, 고릴라 얼굴을 하고 있었다.

21. 또 다른 한 여자의 영이 옆에서 그 짐승 같은 영과 통하더니 서로 사랑의 관계를 했다. 그 여자 영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형제들에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포자기하면서 다른 남자와 사랑하며 노는 여자였다. 그런 괴물 영에게 걸리면 놔주지를 않는다.

22. 한 단계 더 흑암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영들이 생김새도 무섭고, 그 행위도 무섭고, 성격도 무섭다. 그들은 서로 싸우고 상처를 입히며 잔인한 짓들을 하고 있었다.

23. 오직 성자 예수님과 일체 되어 깨끗하게 사는 영들은 빛 가운데서 천사들에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었다.

24. 영계에서 내가 말씀을 전하니, 섭리사를 나간 자들의 영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잘 듣고 반가워하며 잘 대해 주었다. / 설교가 끝나고 ‘인사하러나?’ 하고 보니, 부끄러워서 숨어서 가고 있었다. / 그들을 따라가 보았다. 숲속으로 한 참을 외진 소릿길로 가고 있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뒤따라가다 보니 없어져서 어디 있나 찾아보았다. 한 빈집이 있어서 가 보니, 지붕도 없고 벽도 무너져 있었다. 방에는 잡풀이 잔뜩 나 있었고, 다 썩은 침대가 있었고, 침대 위에 누가 누워 있었는데 누더기 이불을 폭 덮고 있었다. ‘여기 있나?’ 하고 얼굴 위쪽의 이불을 벗겨 보니, 아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잘 듣던 그 여자였다. 백발의 쪼글쪼글한 노인이었다. 몸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면서 무섭다고 하였다. “여기 삽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했다. “왜 이런 데서 삽니까?” 하니, “제 집입니다.”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섬뜩하여 이불로 덮어 주고 걸어 나왔다. / 알고 보니 그곳은 음부 쪽 영계였다. 그 지역 여기저기에는 그런 집에서 사는 자들이 많았다. 육계에서 그 육신의 겉모습을 그냥 보는 것과 그 영의 모습은 다르다.

25. 어떤 영들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며 나를 쫓는 영들도 있었다. 가까이에서 그들을 보니, 생시에 나를 미워하고 악평하는 자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보는데, 그들은 나를 못 보았다. 영급이 높고 사명이 높으면, 낮은 급에 사는 영들은 못 본다. 고로 그들이 하는 말과 행실을 보고, 그 육신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26. 어떤 영은 그 몸 안에 뱀이 들어 있었다. 그는 사탄에게 문을 따 주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한 자다. 본인은 모른다. 그런 자들의 영은 각종 뱀이 몸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 몸 안에 있기도 하다. 그것을 보고, 그 육의 행실을 안다.

27. 어떤 영을 구원해 주려고 계속 기도하니 그 영이 악한 짐승에게서 풀려나고, 내가 그 짐승을 잡아 죽이니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진정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그 육도 영도 살아나게 된다.

28. 영은 자기 육의 행위 그대로 반응하여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서 살고 있었다.

29. 어떤 사람의 마음과 행실과 육계의 상황을 자세히 보려면, 영계에 가서 그 영을 보면 확실히 안다.

<2012년 7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자기 법으로는 사람들과 안 통하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며 통한다.
2.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사탄과 상관없다.
3. 하나님은 사탄의 그 비열한 짓을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신다.
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5. 사랑하는 자끼리 할 말 다 하면 더 이상 할 말 없어 끝나듯이, 사랑도 더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된다.
6. 주와 사랑 거리가 없으면 사랑이 끝나고 말게 된다.

7.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사랑하게 된다.
8. 남녀의 불타던 사랑도 나무가 다해 불이 꺼지듯 하니, 자꾸 나무를 구해다 태워 따뜻하게 하듯이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사랑이 끝나지 않는다.
9. 성자 주님과 사랑도 사랑할 자료가 다하면 끝나게 되니, 자꾸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10. 사랑 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 안 만들면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이 끝나게 된다.
11. 주님과 사랑 거리는 많고도 많다. 기도하면 만 가지나 보여 주신다. 평생 사랑의 에너지다.
12. 사랑 거리가 다하면 불타는 사랑도 끝난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건 사랑을 했더라도 사랑이 식어서 싸우고 끝나게 된다. 사랑의 새 이벤트다. 나이가 들어도 자꾸 사랑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13. 회사도 자꾸 새로운 상품을 고안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야 회사가 약해지지 않고 창대하게 된다.
14. 매일 새로운 것을 구상하며 주와 사랑해야 된다.
15. 사랑의 자료가 다하면 사랑이 식어 사랑하는 자와 멀어지고 헤어지게 된다.
16. 말씀도 때가 되면 새로운 말씀을 줘야 늘 새로운 역사로 희망차게 된다.
17. 할 일이 없으면 역사는 끝난다.
18. 기성은 새로운 것이 없어서 젊은 자들이 놀고, 일자리가 없어서 모두 실업자가 되어 제 갈 길을 가고, 늙은 자들은 할 일이 없어도 존재하고 있으니 늙은 자들만 복적댄다.
19. 섭리사에서 자꾸 새로운 일을 만들어 일을 시켜야 된다.
20. 월명동도 옛날에 만든 그대로 놓고 보기만 하면 옛것이 되고 만다. 자꾸 더 만들면 옛것이 함께 빛나게 된다.
21. 섭리사 문화도 똑같다. 옛것만 고수하면 새 역사가 기성처럼 된다.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
22. 어느 한 교파는 섭리사를 따라 하다가 이제는 못 한다. 계속 따라하다 보면 섭리사에 와야 되니 못 따라 하고, 또 섭리사가 계속 차원을 높여서 하니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 따라 한다.
23. 이 시대는 재림의 때다. 고로 재림의 말씀을 외쳐라.
24. 재림 때 성자는 신랑으로 오신다. 고로 성자가 재림할 때는 '신부의 몸'이 필요하듯이 '사랑'이 필요하다.
25. 남녀가 늙어서 첫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다. 몇 개월만 지나도 사랑의 권태증이 와서 진절머리가 나서 서로 안 만난다.
26. 남녀가 사랑 관계도 다 해 보고 호기심이 나는 것을 다 해 봤으니,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듯 호기심이 없어서 사랑이 식는다.
27.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성자 주님과 정신 사랑에 불붙이고, 영 사랑에 불붙여라. 그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다. 인간의 날 1000년이어도 하나님과 성자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밖에 안 된다.

28. 섭리사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호기심이 다하면 섭리사를 나가게 된다.
29. 기도 안 하면 신앙의 권태증에 빠진다.
30. 선생같이 늘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로운 발견을 하여라.
31. 월명동도 구경할 것을 다 구경하면, 더 이상 안 돌아다닌다.
32. 새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가 본다.
33. 첫사랑이 안 식으려면 자꾸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벤트를 해야 된다.
34. 각자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행하기다.
35. 성자 주님과 사랑할 가짓수는 수백 개나 있다. 자기 생각에서 끝났다고 해서 다 했다고 하지 말아라.
36. 쌀을 가지고 밥만 해 먹고 살면 “또 밥해 먹어?” 하며 지겨워한다. 쌀을 가지고 40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40일 동안 늘 희망이다.
37. 반복하면 뭐든지 지겹고 권태가 온다.
38. 남녀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이 불타도 서로 이성 관계만 하면 지겨워서 권태증에 빠지고 힘들어서 사랑의 불이 꺼진다. 같이 먹고, 배부르면 등산 가고, 등산 가서 땀 흘리면 수영장에 가고, 수영하면 배고프니 별미 먹으러 가고, 또 힘이 생기면 구상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성자 주님의 신부로서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다. 고로 늘 사랑을 연구해야 한다.
39. 사랑의 가짓수를 늘려라. 사랑을 배워라.
40. 사랑은 가짓수대로 느껴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희망이다.

<2012년 7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도자들은 늘 새롭게 해야 된다.
2. 새로운 역사 도전이다.
3. 모두에게 새로운 것이 있다고 보여 주고 새롭게 하게 하여라.
4. 기도엔 권태가 오면, 행하는 기도를 하여라. 대화 기도를 하여라.
5. 말씀을 가르치기 어려우면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하여라.
6. 나이 먹고 늙은 기성인 같은 자들만 쳐다보지 말고, 새롭게 전도하여 그들을 길러라. 그래야 모두 불붙는다.
7. 실상 이 시대는 섭리사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전하여라. 하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르쳐 보아라. 그러면 가문 땅이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흡수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8. 1년에 수십 명씩은 전도해야 된다. 전능자 성자와 함께 하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하느냐.

9. 좋은 물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을 만들어 줘도 집에 쌓아 놓고 마음에 쌓아 놓고 노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10. 기성에 가 보아라. 할 일이 없어 손톱 밑의 때를 파낸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11. 요즘은 젊은이들도 할 일이 없으면 침을 발라 때 밀고 있다.
12. 성자 주님은 이 꼴 저 꼴 다 보고 떠나가셔서 다른 자를 불러 새롭게 신부 삼고 가신다. 예술단과 신앙 스타들은 말씀을 배우고 외쳐라. 그러면 주님께서 상당한 값을 준다고 하셨다.
13. 사랑이 좋아도 힘이 있어야 사랑한다. 힘은 말씀에서 온다. 성령 역사에서 온다. 증거하고 전하는 데서 온다.
14. 남녀들이 힘이 없으니 껴안고 가다가 팔을 풀어 손잡고 간다. 그러다 힘이 없으니 손을 놓고 걸어간다. 그러다 힘이 없으니 주저앉아서 잔다.
15. 힘없으니 백마를 갖다 놓고 차를 갖다 놓아도 못 탄다. 그 지경까지 가기 전에, 힘이 바닥나기 전에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
16. 새로운 것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성자 주님은 각 개인에게 줄 것을 만 가지나 가지고 계신다.
17. 이성 사랑과 세상 사랑이 좋아서 성자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니, 실컷 사랑하다가 힘 빠지고 지겹고 권태가 와서 헤어지고 세상까지 싫어하며 눈도 뜨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산다. 성자 주님을 버리면 그 꼴 된다. 지금 성자 주님이 떠나실 때다. 알겠느냐.
18.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담장 너머 영계를 쳐다보니, 인생 살기 지겹고 재미없어서 마귀 운동회와 마귀 연극을 보러 다닌다.
19. 섭리사를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다니다가 따끔한 지옥 불에 수시로 스치니, 그 따끔한 맛을 보고서 혀를 내두른다. 그러다 지옥 불에 들어가면 그 혀가 무슨 꼴이 되겠느냐.
20. 섭리역사는 성자 분체를 따라서 지금까지 새롭게 역사를 펴 왔다. 섭리역사는 새로운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늘 희망에 불타는 역사다.
21. 성자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할 말을 다 하고 사랑할 것을 다 하면 끝났으니 간다고 하신다.
22. 그러나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랑을 중심한 프로그램을 하면 하루 종일 안 가신다.
23. 성자 주님을 옆에 놓고도 말 안 하면 가신다.
24. 연극 다 끝나면 관객은 떠난다.
25. 세상은 보여 주기다. 해 보기다. 만들어 보기다. 고로 '거리'를 만들어 주어라.
26. 연애기 끝나면 아기 낳기다.
27. 과일나무는 열매를 보고 가꾸기다.
28. 일이 지겹다고 하지 말아라. 일 없으면 10배 더 지겹다.

29. 감옥 생활은 지옥이지만, 거기서 천국 생활 하면 천국이다. 마음먹고 행하기 나름이다.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삼위일체의 성자를 믿고 알았는데,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성자 앞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2. 성자께 직접 가는 자가 그 시대 중심인물이요, 구원자다. 성자는 그를 통해 그 시대 구원 역사를 펴신다.
3. 시대 구원을 얻을 자들은 그 중심자를 통해 성자 앞에 가야 된다.
4.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지만,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5.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지만, 백성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6.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갔지만, 그 시대 구원을 얻을 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7. 전쟁터에서 한 부대의 중심 지도자는 본대와 직접 통하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병사들은 그 부대의 중심 지도자와 통하는 것만 가지고 있다.
8. 시대 중심자는 하늘과 직접 통하고, 나머지는 그 중심자로 말미암아 하늘과 통하게 된다.
9. 구약시대 때는 '종의 몸'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
10. 신약시대 때는 '아들의 몸'인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자 주님께 나아갔다. 메시아는 하늘과 직접 통한다.
11. 성약시대 때는 '신부의 몸'인 성자 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신랑 되신 성자 주님께도 나아간다.
12. 상대성 질서 세계다.
13. 악과 불의한 자가 선과 선한 자와 하나 될 때까지 기회를 주어 회개하게 한다. 그런데도 악이 선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은 선과 악을 쪼개 내신다.
14. 때가 되었는데도 선에서 악을 안 쪼개 내면 선이 악으로부터 해를 당한다. 고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과 악을 쪼개신다.
15.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선과 악을 쪼개는 역사다.
16. 악이 회개하고 선이 되는 기회를 잃으면, 계속 선의 세계에 머물지 못하고 악의 세계로 간다. 결국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간다.
17. 산에서 눈 위에서 스키를 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때 못 멈추면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다. / 멈춘 곳에서부터 다시 타고 내려온다. 영계도 육계도 그러하다.
18. '회개'는 계속 사망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멈추게 한다.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의인은 점점 떠오르는 해와 같고, 악인은 점점 사라지는 해와 같다.
2. 의인은 점점 밀려오는 밀물과 같고, 악인은 점점 밀려가는 썰물과 같다.
3. 악의 세계는 한때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홍수와 같아서 때가 되면 사라지고, 의의 세계는 높은 산에 남아 있는 싱싱한 솔같이 빛이 난다.
4. 악은 어둠이다. 고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가도 빛 같은 의인들이 나타나면 어둠이 빛에 묻혀 사라진다.
5. 의인들은 하나님의 땅을 주인으로서 차지하고, 악인들은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6. 욕은 무익하다. 욕신만 보지 말아라. 그 사람의 영을 선악 간에 보아라. 악인들의 영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의인들의 영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욕을 봐서는 모른다. 욕으로는 그 엄청난 것을 나타낼 수 없다.
7. 세상으로 따질 때는 먼저는 욕 있는 자요, 그다음은 신령한 자다. 그러나 신령한 것으로 따질 때는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다음에 욕 있는 자다.
8. 먼저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다음에 때가 되면 욕 있는 자가 실천하여 세상에 나타낸다.
9. 기도하여 하늘의 허락이 떨어졌어도 욕신이 실천할 때까지 욕적으로는 고생된다. 그러나 희망으로 기다려라. 하늘의 허락이 떨어지는 것이 크다.
10. 먼저는 하늘의 허락을 받는 것이다. 고로 신령한 자 먼저다.
11. 먼저는 기도하여 신령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허락을 받거나, 혹은 성자의 욕이 되는 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땅에서 욕 있는 자가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실천하는 것이다.
12. 영적인 세계, 하늘의 허락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13. 먼저 영적으로 허락받고 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욕적으로 충분히 준비했다가 실천하는 것이다.
14. 먼저는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우는 영적인 일이 먼저다. 그다음에 욕 있는 자가 준비하고 실천하여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15. 신령한 것으로 따질 때는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다음에 욕 있는 자다. 그러나 세상을 기준으로 하여 따질 때는 먼저는 욕 있는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다. (구분하여라.)
16. 성자가 재림하시면 먼저 ‘욕신 휴거’를 시키신다. → 신랑 되신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보낸 자의 욕을 통해서 땅에서 욕신들을 데리고 하는 역사, 곧 신부 집 혼인 잔치 먼저 한다. / 그다음에 ‘영적 휴거’를 시키신다. → 천사장이 나팔 불면, 그때는 성자 본체의 영이 오셔서 신부로 예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역사, 곧 신랑 집 혼인 잔치를 하신다.
- * 이와 같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는 욕 있는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다. 먼저는 욕이 부활되어야 영이 부활되고, 먼저는 욕이 휴거되어야 영이 휴거된다. /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먼저는 영적인 삼위일체와 영적인 입장에 있는 하늘의 보낸 자가 먼저 부활되고, 그다음에 욕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 욕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 그러면 그제야 비로소 욕 있는 자들이 부활되어 그다음에 자기 영을 부활시킨다. 이를 이해하자.
17. ‘부활’은 먼저 신령한 자가 한다. 그다음에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나고 욕 있는 자가 한다. (왜? 다음 잠언을 들

어 보자.)

18. 나사렛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먼저 ‘영’이 사망에서 부활되었다. 그 후에 육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시어 육 있는 자들을 부활시켰다.

19. 이 시대도 그러하다. 먼저는 신령한 자인 ‘영’ 먼저 사망권에서 나와 부활되고, ‘육’은 한 때 두 때 반 때가 끝나고 사망권에서 나와 부활되어 육 있는 자들을 부활시킨다. 고로 먼저는 신령한 자요, 그다음이 육 있는 자다.

20. 먼저는 육 있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라는 말을 이해하여라. 하늘의 성자가 먼저 시작해야, 그제야 땅에 있는 육의 사람들이 시작한다.

21. 하늘이 먼저다. 그다음이 땅이다.

22. 영이신 성자가 먼저 시작하면, 땅의 대상인 신부가 알고 성자와 함께 역사를 시작한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육들은 아직 모르니, 성자가 보낸 자가 신령하신 성자와 함께 가서 육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그때부터 육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육 있는 자의 역사를 하게 된다.

23. 먼저는 육 있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요, 신령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다.

24. 땅에서 볼 때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다. 곧 먼저는 육적인 아담이요, 그다음이 보다 신령한 나사렛 예수님이다.

25. 먼저는 신부 시대가 아니요, 자녀 시대다. 신약 자녀 시대가 지나야 성약 신부 시대가 온다.

26. 재림 때 성자가 보낸 자는 하늘의 성자 앞에는 신부요, 세상 보이는 자들에게는 신랑이다.

27. 신령한 자로 인해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먼저는 육 있는 자 역사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 영의 역사다.

28. 사탄, 마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대가로 영원한 지옥 불에서 각종 고통을 받으면서, 의인들을 괴롭힌 짓값을 받으며 영원히 괴로워한다. 그렇다고 그 죄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의인들이 그 고통을 일점일획도 영원히 생각해 주지 않는다.

29. 의인들은 악인을 이기고,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보이는 구원자를 사랑하고 순종한 대가를 천국에서 영원히 받고 누린다. 그 희락은 천지 만물같이 크다.

30. 세상에서 육이 사는 기간은 자기 삶으로 씨를 뿌리는 봄과 같고, 미래에 영의 세상에서 영이 사는 기간은 거둬들이는 가을과 같아서 자기 육이 씨를 뿌리고 가꾼 대로 받는 기간이다.

31. 자기 영이 어둠의 세계, 혹은 빛의 세계 중 어느 곳으로 갈지, 세상에서 육이 살면서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육의 행위로 인해 영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32.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들 모두 잘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한 ‘의’를 일점일획도 오차 없이 다 계산하여 빛 쪽으로 오기를 원하신다. / 그러나 사람들은 빛의 세계에 속한 삶보다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삶을 더 많이 살기에 그 행한 대로 그 영이 흑암 세계로 가게 된다. 다만 자기 육이 행한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니, 그 의로 인하여 흑암 세계에서의 고통이 조금 덜할 뿐이다.

<2012년 7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돌과 바위도 형상이 있을수록 값이 나가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2. 사람은 신비하고 아름다울수록 더욱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한다.
3. 사람의 ‘얼굴과 몸’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똑같이 닮을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보고 그와 같이 행할 때 그를 똑같이 닮을 수 있다.
4. 사람은 누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닮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도 다르고, 성자 주님을 닮으면 신비하고 아름답고, 그 운명도 좌우된다.
5.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심을 닮을수록 그 가치는 하늘로 치솟고 영원히 간다.
6. 자기가 닮고 싶은 자를 닮으려면 그 생각을 배워야 된다. 그 생각과 일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7. 성자의 마음과 행하심을 닮으려면, 성자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된다.
8. 성자의 마음과 생각과 행하심을 닮은 자는 아름답다. 신비하다. 웅장하다. 그 삶은 기적의 삶이며, 천국의 삶이다. 그 가치는 영원한 가치이며, 신의 가치다.
9. ‘육신’을 아름답게 만들기는 쉬워도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
10. 성자 주님을 닮으려면 그림을 그리듯 심혈을 기울여 성자의 마음을 받고, 그 행하심을 그대로 행하여라. 마음으로 그려 닮고, 행실로 그려 닮기다.
11. 성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성자의 마음과 닮게 되고, 성자 주님의 행하심대로 행하면 성자의 행함과 닮게 된다. 성자의 행하심은 신의 행함이라 안 보이니, 그의 분체를 보고 행하여라. 또한 성자가 쓰고 행하는 자의 육신 보고 행하여라.
12. 성자 주님은 신으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음성이 귀로 들리지도 않는다. 마음에 느껴져 온다.
13. 기도를 깊이 해야 성자 주님의 존재와 그 음성이 보다 강하게 마음에 느껴져 온다.
14.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 틀린 곳은 자꾸 지우고 고친다. 이와 같이 성자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성자의 행하심대로 행해 놓고서 계속해서 자세히 고치고 수정하고 교정하기다.
15. 마음도 행실도 마음먹고 행해 놓고 고치고 교정하기다.
16. 성자 주님의 마음과 일체 되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리고 성자의 보이지 않는 행하심을 깨닫고 자기 육이 성자의 몸이 되어 행하게 된다.
17. 성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 행하면 신비하다. 아름답다. 기적이다.
18. 성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면 쉽다.
19. 성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자와 붙어 살면 점점 변화되고, 때를 따라 영도 육도 변화되어 신과 같이 되어 보람 있게 살아간다.
20. 주님의 생각으로 하면, 불필요한 것을 행하지 않게 된다.
21. 주님의 생각으로 하면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데,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면 하나하나 다 해 보면서 살아가니 그 열

마나 늦겠느냐.

22. 주님은 생각조차 안 하고 가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니 자기 생각에 빠져 갈 길 못 간다.

23. 주의 마음과 생각과 일체 되어 가면 하루에도 천 리 길을 간다.

24. 주님이 같이 가면 문턱만 넘으면 갈 수 있고, 혼자 가면 산을 넘어가야 갈 수 있다.

25. 주님이 같이 하면 일순간에 하고, 자기 혼자 하면 한 세월이 걸린다.

26. 주님이 같이 하면 어떤 것은 행하지 않고도 더 잘되고, 자기 혼자 하면 안 해도 될 일을 몸부림쳐 한다.

27. 주는 영으로 하시고 인간은 육으로 하니, 주는 초침과 같고 인간은 긴 세월과 같다.

28. '지혜'는 지름길로 가게 하고, '무지'는 무작정 돌아가게 한다.

29.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서 행하면, 행하는 대로 가치 있고 빛이 난다.

30. 사람의 것을 배우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만큼만 쓰여지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것을 배우면 하늘같이 크게 쓰여진다.

<2012년 7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만사의 일은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해 봐야 한다. 행할 때 느낀다. 얻는다. 몸도 마음도 변화된다. 다른 차원에 가 있다.

2. 행한 날은 얻고 산 날이다.

3. 눈으로 보기, 귀로 듣기, 손으로 만지기, 몸으로 행하기다. 이같이 해야 신의 마음을 닮게 된다.

4. 신의 생각을 닮으니 신이 되어 살아가고, 사람의 생각을 닮으니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

5. 짐승은 사람의 마음을 닮아도 행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신의 마음을 닮으면 신과 같이 행하게 된다.

6.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쓰기다. 그리기다. (곧 성자 주님의 마음대로 행하기다.)

7.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고 마음이 감동 되어 몸으로 행하게 된다.

8. 마음과 생각이 성장되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필요한 것을->것만 분별하여 즉시 취하거나, 불필요한 것을 분별하여 즉시 버린다.

9. '인간'은 1단계에서 만족하며 갈등과 곤고함을 겪으며 살고 있고, '신'은 전지전능하시어 7단계에서 살고 있다. 신과 일체 되어라.

10. 성자의 마음과 그의 행하심을 닮고 행하기다.

11. 말과 행실의 미적 감각을 가져라.

12. 말의 추상화다. 행실의 추상화다.

13. 말도 행실도 심플하게다.
14. 아름답게, 화끈하게다.
15. 옛것은 전통이지만, 꼴통이다.
16. 미련한 자는 거죽 같은 욕을 움켜쥐고 만족하며 살아간다.
17. 욕의 사랑의 핵이 다르고, 영의 사랑의 핵이 다르다. 쓰여짐도, 행함도, 느낌도, 가치도 다르다.
18. 생긴 대로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써야 가치가 있다.
19. 인간은 창조주가 만드신 대로 써야 제대로 쓰임 받게 되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20. 손을 발로 쓰고 발을 손으로 쓰니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보람도 없는 것이다.
21. 각 지체는 그에 해당되는 대로 써야 지탱한다.
22. '핵'을 얻기 위해 수고하여라. 거죽은 보자기다.

<2012년 7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서 범죄 했어도 회개해야 된다. 이는 자기가 생시에 죄지은 것을 영계로 보여 주고 깨우쳐 준 것이다.
2. 생시에 자기가 범죄 했어도 잘 모른다. 영적으로 보면 확실히 보인다. 고로 꿈에서 죄지은 것도 회개하는 것이다.
3. 욕하고 성질내다가 상대와 싸움도 하게 되고 격한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 마음으로 미워하여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욕까지 죽이기도 한다.
4. 자기 욕성으로 편안하고 안일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욕하는 마음이다. 이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다.
5. 꿈을 통해 지난날 자기 잘못이 보이기도 하고, 앞날에 행할 잘못이 미리 보이기도 한다. 기도하여 회개함으로 없애라.
6. 욕신의 욕성을 꺾고 영의 시간을 보내면 욕성이 장사 지낸 바 되어 욕성이 죽고 깨끗이 청산된다.
7. 신경질 내고 화내면서 욕하고 행동하는 것만 욕성의 행위가 아니다. 욕하고 편안하게 행하는 것도 다 욕성이다.
8. 욕신의 안일함과 욕신만을 위한 삶들이 다 욕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환난 때 고통의 불이 나는 화근이 된다.
9. 형제와 다투고 싸우면 그것이 화근이 되어 불이 일어나듯 한다. 즉시 멈춰야 그 불이 꺼진다.
10. 다투고 싸우는 것은 방축이 새는 것과 같고, 집에 불이 나서 타는 것과 같다.
11. 다투고 싸우는 것은 욕성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욕성이 일어나는 것이 불이 일어남과 같다.
12. 자기 욕신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욕성으로서 욕하는 마음이다.

13. 자기 욕성을 없애려면 기도해야 된다.
14. 욕성은 잡초같이 자꾸 솟아난다. 고로 매일 뽑아야 된다.
15.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자는 회개하지 못한다.
16. '회개'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게 한다.
17. '회개'는 뱀이 물려고 하는데 때려잡는 것과 같다.
18. '회개'는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피하는 것과 같다.
19. '회개'는 각종 위험이 닥치는데 미리 피하는 것과 같다.
20. '회개'는 죽음의 병이 왔는데 이를 알고 즉시 수술하거나 약을 먹고 해결하는 것과 같다.
21. 그러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모든 고통이 닥쳐온다.
22.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죄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와 민족과 세계의 죄까지 자기와 다 연결되어 그 짓값을 받게 되기도 한다.
23.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기에, 하나님과 주님은 죄를 두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24. '회개'는 행하는 것이다.
25. '회개'는 매를 피하게 하여 없애고, 생명길로 가게 한다.
26. 죄를 경히 여기지 마라.
27. 자기 죄를 찾아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28. 자기 죄를 용서받은 자는 그때부터 복을 받는다.
29. 형제가 마음에 거슬리고 속상한 말을 한다고 해서 욕하고 성질내면 자기 집에 불이 붙는 격이 된다. / 참으면 욕하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 되어 복이 온다. 환난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30. 자기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데 형제가 모르고 아니라고 할 때 욕하게 된다. 그에게 가르쳐 주지 못할지라도, 그가 계속 잘못된 것을 주장할지라도 욕하고 화를 냄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31. 상대가 심정을 몰라준다 해도 다투고 싸우는 것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이 모든 것이 영의 법에 걸리는 것으로서 모두 회개거리다.
32. 상대와 대화하다 보면 서로 심정이 안 맞아 다투게 되고, 그때 욕하고 욕성이 일어난다. 이때 지혜자는 희생하고 갈 길을 돌아서 간다.
33. 다툼은 피하고 가야 갈 길을 가게 된다.
34. 욕성은 불의를 보고 일어난다. 불의를 보고 욕성이 일어날지라도 욕성이 일어나면 그 역시 불의다.

35. 참는 자가 승리한다.

36. 상대가 옳지 못한 것을 주장하더라도 욱하는 욱성을 참고 영성으로 가르쳐 주어라.

37. 욱성이 강하면 영성은 약하다.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욱하고 화내고 혈기 내는 것도 욱성이지만, 욱하고 “잠이나 자자. 편안하게 하자.” 하며 안일하게 행하는 것도 욱하는 욱성에 속하는 것이다.

2. 욱하는 욱성이 일어나면 자기 산에 산불을 내는 격이다. 즉시 욱하는 마음을 중지하여라. 회개하여라.

3. 혼자서도 욱적인 마음을 먹고 욱적으로 행하면, 욱하고 성질내고 혈기 내고 행하는 자와 똑같다.

4. 욱하는 성격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다.

5. 욱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선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여라.

6. 욱하는 성격은 가인의 성격으로 자기 영혼을 지옥 불에 사른다.

7. 욱하는 가인의 성격을 없애야 황금같이 값진 주님의 신부가 된다.

8. 거친 가시밭을 파내고 닦아 아스팔트를 깔듯이, 자기 나쁜 성격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닦아 선한 마음으로 만드는 공사를 하여라. 그래야 그 마음에 잡초도 안 나고 가시덤불도 안 난다.

9. 자기 마음을 한 번 잘 만들면 평생 편하게 사는데, 안 만들고 평생 영원히 고통 당하며 산다.

10.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기다. 그것을 가지고 건설하고 발전하는 데 쓰기도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데 쓰기도 한다.

11.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무기다. 그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기도 하고, 악하게 쓰기도 한다. 선악의 기로에 서 있다.

12. 사람의 마음은 선악과다. 선한 과일로 쓰면 선이요, 악한 과일로 쓰면 악이다.

13. 인간은 선악의 존재다. 선이신 하나님께 가면 누구든지 선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로 가면 누구든지 악의 존재가 된다.

14. 혈기와 악이 없는 자는 지상에서도 하늘 편에서 산다.

15. 욱하는 성격을 없애야 자기 사랑의 상대도 욱하는 성격이 없어진다.

16. 욱하는 성격은 형제를 미워함으로 죽이는 무기다. 그러다 형제의 육신까지 죽이는 무기가 된다.

17. 욱하는 성격은 논밭의 바위와 같다. 캐내어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마음 밭도 옥토가 되어 작품 된다.

18. 너보다 어린 자라도 나 성자가 그 욱을 쓰고 있는데, 그가 모르는 소리 한다고 그에게 욱하고 화내고 혈기 내면, 소경으로서 그 얼마나 내게 죄를 짓는 것이냐.

19. 사람이든 만물이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대하여라. 순간 욕하고 혈기 내며 대하지 말아라.
20. 욕하는 성질과 분노와 혈기가 있는 자는 마치 그릇에 찌꺼기가 남아 있듯이 마음에 찌꺼기가 있는 자다. 싹 씻어 없애면, 누가 마음을 뒤집어도 욕하는 성질이 안 올라온다.
21. 성자 주님은 마음 바닥까지 착하고 선한 자를 찾으신다. 그 마음은 잡초가 없는 옥토 밭과 같아서 그 영이 빛나게 잘 성장한다.
22. 주 안에서 착하고 선한 자는 미인같이 아름다운 자라서 영계에서 보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난다.
23. 마음 닦기다. 몸 닦기다. 그래야 희귀종같이 특별한 인생으로 취급받는다.
24. 형상이 있는 바위는 희귀 바위이듯이, 착하고 선한 자는 착하고 선한 것이 형상이 되어 있으므로 결국 인생이며 희귀 인생이다.
25. 성자 주님이 쓰시는 자는 모두 희귀하고 신비한 인생이 되어 가고 있다.
26. 얼굴도 몸도 아름답고 멋있는데 성격이 혈기와 분노를 내는 욕하는 모양이면, 모두 가까이하지 않고 피한다.
27. 큰 돌이 있는데 겉모양은 번질번질하고 강변 돌같이 매끄러운데 그 형상이 야수 같고 귀신 같은 형상이면, 사람들은 그 돌을 안 좋아한다. 그 돌은 작품이 되지 못한다. 손질하여 좋은 형상으로 고치면, 돌이 매끄러우니 빛나는 작품이 된다.
28. 돌이 산돌같이 거칠어도 그 형상이 미인 형상이고 성자 형상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며 같이 사진도 찍고 늘 가까이 사랑하면서 대한다.
29.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택하여 쓰지 않으신다. 마음을 보고 중심자로 뽑아 쓰시고, 사랑하는 신부도 뽑아 기르신다.
30.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영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결정된다.
31.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의 영혼이 천국에 간 일은 단 한 번도 없다.
32. 세상에서 최고로 욕하는 혈기와 분노를 가진 민족은 세계적인 테러범인 북한이다.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인간이 알고 있는 단계에서 믿어서는 제대로 못 믿는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인간에게 해 주시는 것은 상상도 못 하게 많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정말 잘 믿는다.
2. 실상 인간은 세상에 자기가 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없다.
3. 전능자께서 세상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다 해 놓으셨다.
4. 인간은 전능자가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게 100% 해 놓은 것에서 겨우 자기 존재를 위해 생활하며 살아갈 뿐이다.
5. 자기가 자기 육신이 태어나는 데 전혀 한 일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는 데 인간이 전혀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해, 달, 별, 지구, 공기를 만드실 때 인간은 1%도 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해 주셨다. 인간은 다만 자기 존재를 위해 행하는 것뿐이다.

6.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다 해 주셨다.
7. 고로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서 하나님과 성자를 믿으려 하면 제대로 못 믿는다.
8.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다 해 놓으셨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 제대로 못 산다.
9.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도록 매일 다 해 놓으신다. 인간이 행하며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10. 축소해서 보자. 저마다 사람의 구조와 지체가 다 있다. 고로 자기가 그 지체를 가지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못 하기에 못 산다.
11. 저마다 마음과 생각이 다 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니 못 산다.
12.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와 성령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 인간으로서 할 것만 하면 육이 잘 사는 것은 물론 영혼까지 영원한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
13. 섭리사도 성자 주님과 사명자가 다 해 놓았다. 저마다 자기가 할 것을 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잘된다.
14. 자기가 할 일을 할 때도 성자 주님과 사명자가 또 도와준다.
15. 인간이 자기 존재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16. ‘세상’은 밤 같은 세상이며, ‘천국’은 낮 같은 세상이다.
17. 밤이 끝나면 낮이 진행되듯이, 육의 세상이 끝나면 영의 세상이 진행된다. 이를 믿고 영의 세상에서 살 것을 예비하고 살아라.
18. 밤을 통해 낮이 온다.
19. 육의 세상을 통해 영의 세상이 온다. 육을 통해 영이 성장되어 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20. 돌과 나무가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은 돌과 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만물에 눈을 떠 돌과 나무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21.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마음과 일체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22. 만든 자같이 귀히 보고 아름답게 보는 자가 없다.
23. 자기 자녀를 낳고 기른 부모같이 자기 자녀를 아름답고 예쁘게 보는 자가 없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같이 사람을 귀히 보는 존재자는 없다.
24. 만든 자가 책임지고 관리도 해야 된다.
25. 사명자는 제2의 만든 자다. 고로 책임지고 좋아하며 행해야 된다.
26. 만든 자는 그것을 만들 때 수고와 노고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만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27. 자기가 낳은 자는 자기 생명이 가서 자기 지체로 만든 자다. 고로 애착을 가지고 귀히 보고 사랑한다.

28.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자기 손과 정성과 수고로 만든다. 마치 자기 생명으로 만들듯 만든다. 고로 자기 자녀같이, 자기 애인같이, 자기 몸같이 귀히 보는 것이다.

29. 남녀가 사랑의 유전자로 생명을 낳듯이, 기도의 사랑의 유전자로 신랑이신 성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낳는 것이다.

30.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생명의 유전자다.

31.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기도로 행하여라. 그리고 몸으로도 행하여라.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 살이 찌 빠지지 않듯이, 신앙으로 세운 공적은 자기 신앙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다 가지고 있다.

2.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웠어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이 죽으면 그 공적도 모두 사라진다.

3. 현재 하는 대로 존재한다.

4. 운동 살은 운동하면 찌고, 안 하면 안 찌고 찢 살도 다 빠진다. 신앙의 은혜 살도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안 하면 바로 빠진다.

5. 운동은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지, 많이 하다가도 쉬면 운동 살이 다 빠진다. 신앙의 은혜와 진리 살도 꾸준히 해야지, 안 하면 바로 빠진다.

6. 운동 살은 3개월 해야 표가 나게 찌고, 신앙의 은혜 살은 20일 정도 하면 찌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일주일만 신앙을 안 하면 은혜 살이 빠진다.

7. 꾸준히 하여라.

8. 모든 것이 안 하면 중단된다.

9. 신앙이 죽으면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안 하게 된다.

10. 사람에게 육적인 관계보다 정신적인 관계가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오래간다. 정신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오래간다.

11. '육'은 그 존재대로 한두 시간을 뛰면 지쳐서 못 간다. 그것이 육의 한계다. '정신'은 하루 이틀 생각하며 뛰고, 한 달 동안 생각하며 뛰어도 안 지친다. 그만큼 육과 정신의 차이가 크다. '영'은 뛸수록 더 뛰는 존재다. 고로 1년, 2년 뛰어도 안 지친다. 그만큼 정신과 영의 차이가 크다. / 이처럼 육으로 행하는 것이 힘드니, 모두 마음은 있는데 육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힘들다.

12. 육적인 것은 힘들어도 하면 얻어진다.

13. 마음적인 것은 가만두면 없어진다. 마음이 육에게 힘을 주어 육이 실천해야 얻게 된다.

14. 육은 약하여 마음이 원해도 아프고, 병이 나고, 약해져서 한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지속할 수가 없다.

15. 육은 약하니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
16. 육은 고장 나면 못 한다.
17. 육체는 기구다. 고로 매일 수리하고, 점검하고,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18. 육은 정신이 아니니, 정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고장 난다.
19. 철학자 니체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육신을 돕지 않다가 일찍 병들자,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를 보고 부러워하며 건강한 육체가 최고라는 건강 철학을 갖고 있다가 죽었다.
20. 신앙인은 정신적으로 사는 자들이니, 육신을 돕지 않다가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어 육신이 쇠해지는 폐단을 낳는다.
21. 영과 정신이 잘됨같이 육신도 잘돼야 육으로 실천한다.
22. 세상인은 육적으로만 가니, 영을 돕지 않다가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 미래 없는 삶을 산다.
23. 육과 영의 밸런스를 맞추며 가는 것이 최고 정상의 삶이다.
24. 육과 정신의 밸런스다. 육과 영의 밸런스다.
25. 육적으로만 치우치면 즉시 영적, 정신적 곤고와 한계가 온다.
26.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치우치면 즉시 육적 곤고와 한계가 온다.
27. 육, 정신, 영을 쪼개서 각각 관리하여라.
28. 밥 먹듯이 꼭꼭 운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약해진다. 육은 유기 생명체다. 쇳덩어리가 아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다.
29. 육은 정원의 나무와 같아서 늘 관리해야 된다.
30. 적당한 운동이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늙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몸의 영양이 빠지게 만든다.
31. 자기 힘만큼 하지 말아라. 운동도, 노동도 자기가 가진 힘만큼 하면 결국 쓰러진다. 사람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하기에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 쓰면서 하지 말고 조절해야 된다. 차가 시속 200km, 230km를 달릴 힘이 있어도 경주가 아니니 시속 120km, 150km까지만 달려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32. 인생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다. 필요한 만큼 꾸준한 삶이다.
33. 365일 평균이다. 하루 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루에 목숨 걸고 해야 한다.
34. 오르내리면 지쳐서 더 못 간다. (그림)
35. 꾸준히 노 젓는 삶이다. 미친 척하고 놀면 육신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36. 유유히 걷는 삶이다.

37. 놀다가 확 하고 미뤘다가 확 하면 몸이 고장 난다.

38. 조금씩 일하고 조금씩 쉬는 삶이다.

39. 급히 밥 먹듯이 하는 삶이 아니다. 이야기하며 밥 먹듯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주와 일하면서 대화다. 일 다 해 놓고 따로 대화하면 일을 잘못하기도 한다. 일하면서 주님께 코치 받으며 서서히 하는 것이다.

2. 일 다 끝나고 기도가 아니다. 일하면서 기도다. 그래야 일이 잘된다.

3. 기도도 경주가 아니다. 주의 일도 경주가 아니다. 삶이다.

4. 목욕할 때는 몸 전체를 골고루 씻고 닦는다. 역지로 후다닥 때를 밀고 나오면, 몸의 때가 텅텅 불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 서서히 때를 불리고 때를 미는 것과 같은 인생 삶이다.

5. 머리만 감고 끝내면 하나 마나다.

6. 기도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놓고 다 기도해야지 하는 것만 하면, 목욕탕에서 부분적인 곳만 씻고 나오는 격이다. 상체는 씻고 하체는 안 씻고 나온 격이다.

7. 청소할 때도 집안 전체를 청소하듯이, 기도도 전체의 것을 해야 된다. 행실도 그러하다. 관리도 이같이 하여라.

8. 기도는 '영의 것'과 '마음의 것'과 '육의 것'을 다 해야 된다. 관리자들과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고 안 나고 건강하도록 기도하고, 은하수·중고등부·대학부·청년부·가정국·장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고, 각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강사들·교사들·각 부서 지도자들·목회자들·중앙 부서 지도자들·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스타 부서·달 부서·민들레 부서·백합 부서·모델과 치어 등 예술단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 각 나라와 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고 계시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월명동 책임자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강사를 위해 기도하고, 자연성전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불우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조직 폭력단과 깡패들을 놓고 기도하고, 경제 사기꾼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이비 종교를 놓고 기도하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정치와 종교를 놓고 기도하고, 미국·중국·러시아·인도 등 대국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적으로 비행기 사고와 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어둠의 영계에 있는 자들을 빼내는 기도를 하고, 행악자들과 악평자들과 언론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섭리사 지도자 7000명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 주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인 모두 재림 준비를 완전하게 하도록 기도하고, 성자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천사를 위해 기도하고, 시대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잠언을 위해 기도한다. 선생은 매일 이같이 기도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왜 기도할 것이 없다고 하느냐. 이것을 놓고 각각 2분씩만 기도해도 1시간이 간다. 매일 수십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9. 일도 한 것만 되고 청소도 한 데만 되듯이, 기도도 한 것만 되고 안 한 것은 안 되고 그냥 있다. 기도는 일이다.

10. 모두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놓고, 왜 선생만 기도하게 두느냐.

11. 한번은 너무 힘들어서 그날은 새벽기도를 못 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섭리사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났다. 선생이 기도하지 못한 날은 제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선생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사고가 난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라.

12.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죽어 나간다.

13.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따르는 자들에게 손해다. 지도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산다. 우선권이기 때문이다.

14.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따르는 자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고 중심과 일체 되지 않아서 실패하기도 하고, 전체가 고통의 십자가 길로 가기도 했다.

15. 지도자와 따르는 자는 같은 운명이다. 하지만 옆어지면 지도자는 위에 있기에 덜 다친다. 차를 타면 운전사를 위해 꼭 기도해 주는 것이다. 기도는 대화다.

16. 전능하신 성자 주님께서도 하찮은 인간인 본체와 의논하고, 초신자들과도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행하신다. 섭리사의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과 의논하여라.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는 지도자는 교만하기에 그러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기에 그러하다. 섭리사 밖에서 보면 실상 아랫사람이 그 지도자보다 더 낫고 긴다. 섭리사에서는 사명 때문에 크게 볼 뿐이다.

17. 전능자 하나님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가 된다.” 하고 법을 정하셨다. 법을 어기니 잘될 리가 있겠느냐.

18. 사람들과 의논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선생과도 의논을 잘하고, 사람들과 의논을 안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선생과도 의논을 안 한다.

19. 교회 운영에 있어서 꼭 교인들과 의논이다. 그래야 화평한 교회가 된다.

20. 지도자가 아랫사람과 의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맥이 빠져서 힘이 있어도 같이 안 한다. 결국 지도자 손해다.

<2012년 7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주님과 자기와 1:1 단계가 되어야 의식 없이 서로 사랑한다.

2. 남녀끼리도 1:1 단계가 되었을 때 의식 없이 서로 사랑하게 된다.

3. 1:1이 무엇인지 그 계시를 풀어야 알게 된다.

4. 깊이 기도하면 성자 주님과 1:1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1:1 단계는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는 단계다.

5. 잡념 단계, 육적 단계는 1:1 단계가 아니다.

6. 자기 생각으로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성자 주님과 1:1 단계가 아니다.

7.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할 때 1:1 단계다. 사랑 단계다.

8. 잠에서 깬어도 누워 있는 단계는 1:1 단계가 아니다. 선생이 잠에서 깬어도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으니 내 옆에 여러 사람이 보였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워서 내 생각을 하면 나와 1:1이 아니다.” 하셨다. 그래서 일어나서 씻고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너와 나 1:1이다.” 하셨다.

9. 성자 주님과 생각 일체, 행동 일체, 사랑 일체 됐을 때가 1:1 단계다.

10. 성자 주님과 성령 안에서 깊이 기도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성경을 보거나, 시대 생명의 말씀을 듣거나, 전도를 하

거나, 관리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가 성자 주님과 1: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기 혼자 해도, 100명이 같이 해도 주님과 1:1이다.

11. 영계에서 보면, 사탄은 우리가 성자 주님과 1:1이 되지 못하도록 옆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보채듯 하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든다.

12. 성자 주님을 두고 시간이 보채고, 이 사람이 보채고, 저 사람이 보채고, 이것이 보채고, 저것이 보챈다.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 육적인 생각이 자기를 보채며 주님과 시간을 뺏는다. 주님의 신부로서 모든 것을 일체 끊어 버리고 성자 주님과 시간을 내어 1:1이 되어야 한다. 꿈에서도 모두 보지 않았느냐.

13. 그 시간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 시간을 뺏는 격과 같이 자기 육신이 자기 영의 시간을 잠으로 뺏고, 자기중심의 생각으로 뺏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뺏는다.

14.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오직 성자 주님과 일체 되면, 그때는 주님과 1:1이 되어 둘만 있게 된다.

15. 사람이 마음이 커야 크게 감동받고, 영적인 것을 예리하게 느끼고, 크게 일을 한다. (꿈에서 주님은 나의 마음이 크다고 하셨다. 고로 감동을 크게 받고, 영계의 것들을 예리하게 풀고, 잠언도 예리하게 풀다고 하셨다. 마음이 커야 모든 사건을 민감하게 살펴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 마음이 커도 발육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 그리고 자꾸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16. 마음이 커도 둔하면 못 느낀다.

17.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해도 깊이 기도하지 못하면 못 느낀다.

18. 자기 마음과 자기 감각을 발육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

19. 기도를 깊이 하는 자만이 마음이 둔하지 않다.

20. 뇌가 마음인데,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둔하다.

21. 성자 주님과 일체 된 삶을 살아야 멍청하지 않다.

22. 자기 홀로 행하는 자는 역시 육성에 속한 자다.

23. 성자의 육과 먼저 일체다. 그리고 성자 본체인 영과 일체다.

24. 영적으로만 속해도 넘어진다. 육과 영이다. 성자는 영이다. 고로 그 육과 일체 되지 않으면, 알기만 하고 육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할 때 성자 주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정신 축복'을 주었다.

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나에게 정신의 축복을 주셨다.

3. 인간은 '정신'으로 살아간다.

4. 인간은 '몸'으로 살아간다.

5. ‘신의 정신 축복’이다.
6. ‘신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살아간다.
7. ‘정신’으로 다스리고, 알고, 행하고, 누린다.
8. 정신이 발달되지 않으면 시대는 21세기에서 살아도 구세기 삶을 산다.
9. 정신이 미개한 자는 육도 미개하다.
10. 절대자 신이 주시는 정신 축복이다.
11. 사람들은 ‘내가 정신이 있나? 없나?’ 하며 사는 맛을 못 느낀다.
12. 정신 축복으로 자기 영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13. 정신 축복은 영의 축복으로 연결된다.
14. ‘정신’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실제로 이상을 이룬다.
15. 어떤 사람은 정신이 어려서 인생 80년, 100년을 살았어도 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16. 물질과 재물과 명예에 빠져 살고, 이성 향락에 빠져 살고, 자기 즐거움에 빠져 사는 정신은 가치 없는 정신이다.
17. 전능하신 신의 정신, 곧 성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최고의 정신 축복이다.
18. 나는 신이 주시는 정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인간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알았다.
19. 하나님의 정신과 메시아 성자의 정신으로 살아야 허무를 벗어나고 확실히 알고 산다.
20. 차는 엔진으로 살아간다.
21. 짐승도 정신이 있다. 그러나 신을 모르는 정신으로 살아간다. 고로 인간도 창조자를 모르고 살면 짐승과 같다.
22.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인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영’으로 살아가라.
23. 신의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삶이 단순하지 않다.
24. 인간은 허무함과 공허함과 허탈함을 느끼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며 산다. 그러다 늙으면 세포가 죽어서 그나마 느끼던 것도 못 느낀다.
25. 나는 신의 정신 축복을 받고, 마음을 못 잡고 “인생이 뭐냐? 사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의 정신을 잡아 주고 인생이 갈 길을 알려 주어 영혼의 삶을 살게 해 주며 인도해 주었다.
26. 인간 스스로는 허무와 공허 속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면서 ‘영’을 모르고 정신만 가지고 산다. 그러니 허무하다.
27. 사람이 창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영원히 확신에 찬 정신으로 희망과 기쁨으로 산다.

28. 육적인 정신으로 살면 허무하고 공허하다.
29. 신의 정신, 영의 정신으로 살면 확실히 산다.
30.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정신체, 곧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
31. 정신체가 그렇게도 중요하다. ‘정신체’가 육체를 움직여 육의 운명을 좌우시키고, 영체를 움직여 영의 운명도 좌우시킨다.
32. 하나님도 성자도 육체보다 정신체에 더욱 역사하신다.
33. 하나님과 성자께서 인간의 정신체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과 말이 깨달아진다.
34. 정신체에 하나님과 성자가 임해야 된다. 정신이 온전하고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35. 정신체는 육체와도 통하고 영체와도 통한다. 정신체는 육체와 영체의 매개체다.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을 구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들어주신다. 큰 것이라도 합당하면 쉽게 들어주신다.
2. 자기도 일을 할 때 합당한 일만 해야 된다.
3.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다 해 놓고 때가 되면 안다. 합당한 일을 했으면 그 일로 인해 ‘축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으면 그 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4. 어떤 일을 할 때 장시간이 들더라도 우선 ‘합당한가?, 정말 합당한가?’ 계산하고서 하여라.
5.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합당한 것만 행하시고, 인간에게도 합당한 것만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행하되, 그 대신 완벽하게 하여라. 하지만 합당한 일이 흔하지 않다.
6. 정신은 마치 무전기의 전파와 같다. 강한 전파를 가지고 있으면, 주위의 약한 전파를 다 꺾고 흡수하며 임무를 수행한다.
7. 정신이 강한 자는 약한 정신을 모두 꺾고 흡수한다.
8.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정신과 강한 영파로서 너무나 엄청나기에 인간의 정신을 다 꺾고 흡수한다.
9. 신의 정신을 받아야 강해진다. 그 정신파와 영파가 아주 강하다.
10. 제대로 알 때 정신파가 강해진다. 모르면 마치 전파가 약한 무전기처럼 흐리멍덩한 정신이 된다.
11.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의 정신을 가지면, 정신파가 아주 강해진다. 마치 성능이 좋고 전파가 강한 무전기와 같다.
12. 정신이 강하면, 사탄의 영파를 모두 다 꺾는다. 또한 자기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탄의 마음인 것을 알고, 다 꺾어서 못 오게 한다.
13.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과 성자의 정신을 받아 강하게 행해야 사탄으로부터 오는 영파를 강하게 꺾어 버린다. 자기 영파가 강하면, 악인의 정신도 사탄의 정신도 아예 못 들어온다. 정신이 굳건해야 주님과도 쉽게 통하게

된다.

14. 무전기의 전파가 약하면 강한 전파에 흡수된다.

15. 자기 정신파와 영파가 약하면, 악평자의 전파에 스며들고 흡수된다. 마치 전파가 약한 무전기는 소리가 끊어지듯, 정신파가 약한 사람은 성자와의 교통이 끊어진다.

16. 기도하면 정신파와 영파가 강해진다.

17. 성령이 임하면 정신파가 강해져서 사탄의 정신이 강한 전파처럼 오려 해도 못 들어온다.

18. 강한 정신파, 강한 영파를 가져라.

19. 선생은 전능자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강한 하나님과 성자와 연결되어 일체 되니, 사탄과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배신자들과 이 시대가 갖가지 전파로 방해했어도 다 꺾었다. 하늘의 영파를 최고로 하여 사니 안 꺾였다.

20. 사탄 마귀의 전파, 곧 영파도 꽤 세다. 사탄이 섭리인들에게 영적 파장을 보내면, 선생은 기도하여 사탄의 영파를 차단시킨다.

21. 사탄의 영파가 6메가라면, 우리 평신도의 영파는 7메가다. 고로 누구든지 사탄의 영파를 다 꺾을 수 있다. 사탄이 영파를 보내면, 모두 강하게 기도하여 영으로 사탄의 영파를 꺾어 버려라.

22. 기도를 깊이 하면, 영파가 강해져서 하늘의 영파가 잡힌다. 마치 TV 채널이 잡히듯이 영계의 상황이 잡혀서 보이고, 영계의 것들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23. 무전기 전파를 올리면 안 잡히던 소리가 잡히고, TV 전파를 올리면 안 나오던 방송이 나온다.

24. 모두 기도를 깊이 하여 영파를 올려 보아라. 그러면 성자의 생각이 자기 머리에 연결되어 잡힌다. 계시를 받는 자들도 다 그리한다. 고로 계시를 받는 자들은 영의 전파가 강하고 세다.

25. 사탄보다 영파가 높아야 된다. 사탄보다 영파가 낮으면 방해를 받아서 주님의 계시를 못 받는다.

26. 새벽에는 주위 전파의 방해가 없기 때문에 무전기 전파가 잘 잡힌다. 이와 같이 새벽은 주위의 방해가 없어서 주님의 영파가 잘 잡힌다.

27. 새벽에 조용할 때 기도하면 주님의 영파가 잡힌다. 영파가 강한 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대의 심정이 잘 느껴지고, 그 심정이 마음에 잘 깨달아진다.

28. 지금은 컴퓨터 시대다. 지금은 영파 시대다. 정신파 시대다.

29. 핸드폰은 기지국을 통해서 전파가 전달된다. 이와 같이 영파도 영의 기지국을 통해서 전달된다.

30. (주 편) 영계에서는 나 성자가 기지국이다. 고로 나와 통해서 영계의 누구와도 통하게 된다. 나를 통해 구약권에 있는 영과도 통하게 되고, 신약권에 있는 영과도 통하게 된다.

31. (주 편) 너희와 나사렛 예수의 영과는 안 통한다. 기지국과 같은 나 성자가 연결해 줘야 통한다. 시대 중심자도 기지국과 같다.

32. 성자 주님과 통하면 사탄과 연결되지 않는다. 어느 때 사탄과 통하면, 자기 뇌와 정신에 사탄의 마음이 와서 사탄

의 생각으로 깨닫게 된다.

33. 성령님과 통하면 성령님의 생각과 성자의 생각이 온다.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이고,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다.

2.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무엇을 주실 때는 먼저 깨닫게 하신다. 알려 주신다. 고로 깨닫고 알고 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3.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도우셔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라도 모른다. 오직 깨닫는 자만 안다.

4. 사람은 보이니, 사람이 도와주면 금방 안다. 신은 안 보이니, 신이 도와주셔도 그 행함을 모른다.

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도우실 때 그 사람만 깨닫게 하며 도우신다. 그리고 사람이 행할 때 지혜와 지식으로 도우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명자에게만 역사하여 하게 하신다.

7. 신은 '생각'을 도우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도운 자는 깨달아 행하고, 돕지 않은 자는 못 깨달아 행하지 못한다.

9. 신과 인간의 차이는 수만 가지가 있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수만 가지의 차이를 만든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악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시고, 의인에게만 알려주어 깨닫고 행하게 하신다.

11. 같은 세상에 사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어 깨닫게 하시니, 그만 사망을 벗어나고 잘되는 것이다.

12. 하나님을 섬기고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나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신다.

13. 악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게 하고, 의인들에게는 심령의 눈과 생각의 눈과 마음의 눈을 떠서 지혜롭게 보이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14. 악인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두시고, 사랑하는 의인들에게는 사랑함으로 인하여 달리 보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15. 의인들에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깨달음의 손'에다 축복을 주신다. (고로 깨달아 행하여 얻게 하신다.)

16. 전능자의 축복은 '뇌'로 받으니, 받는 자 외에는 모른다.

1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생각의 손, 마음의 손, 즉 정신의 손'에 축복을 주시니, '정신'이 불구자가 되면 하늘의 축복을 못 받는다.

18. 정신의 손, 마음의 손이 깨끗해야 전능자께서 축복을 주신다. 정신의 손, 마음의 손이 더러우면 안 주신다.

19.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것을 열어보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
20. 마음 그릇이 깨끗해야 주시고, 기도하여 구해야 주신다.
21. 방송국에서 전파로 뉴스를 내 보내도 고장 나지 않은 TV에서만 뉴스를 볼 수 있듯이, 성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22. 사람끼리 가까운 거리에서 말하면 그냥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수백 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화하려면 전파를 받는 기계, 곧 핸드폰을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다.
23. 영의 세계의 것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영파로 정신 세계인 뇌를 통해서 보낸다. 고로 항상 뇌, 곧 마음과 정신으로 받아야 된다. 빛으로 150억 년 걸려 갈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영파로 정신 세계인 뇌를 통해서 할 말을 보내면, 영도 육도 받는다.
24.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른 것이 정신파, 영파다. 하늘 천국에서 지상까지의 거리는 빛으로 150억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영파로는 하늘 천국에서 말하면 지상에 동시에 들린다.
25. 영파로 보내면, 지구에서 하는 말이나 천국에서 하는 말이나 동시에 들린다. 고로 성자 주님이 어디에서 말하는지 모른다.
26.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옆에 가까이 있으나, 수백 리 떨어져 있으나 동시에 말이 들리고 화면이 보인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27. 영의 눈을 뜨면, 거리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영의 세계가 보인다.
28. 정신과 영으로 통하면, 성자 주님께서 천국에 계시든지, 낙원에 계시든지, 땅에 계시든지 동시에 보고 느끼고 통한다.
29. 인간은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용하고, 하나님은 이미 창조한 인간의 뇌, 곧 정신 기구를 발전시키며 사용하신다.
30.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때인 수백만 년 전부터 인간의 뇌를 사용하셨다.
31. 스마트폰은 인간의 정신에 비하면 장난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정신은 땅에서 천국까지 통하게 하는 기구다.
32. 영 스마트폰은 육 스마트폰 같지 않다. 육 스마트폰은 상대와 통하기만 하는데, 영 스마트폰은 혼자 제자리에서 태양도 달도 꿰뚫어 본다.
33.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 즉 지구를 보실 때 남극에서 북극까지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인간의 속도 다 꿰뚫어 보신다.
34. 어떤 것은 자기 정신을 통해서 하지 않고, 자기 영이 영계에 가서 직접 보고 오기도 한다.
35. 한계 이상의 것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허락하셔야 볼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은 자기 실력껏 볼 수 있다.
36.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질서 있게 통솔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얻게 된다.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지 않고 수고 없이 조건 없이 얻으려 하면 욕심이다.
2. 절대 '기도'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지불한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얻는 것이다.
3. 기도한 것이 합당하면 얼마든지 주신다. 받고나서도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써야 된다. 그의 사랑하는 자와 같이 써야 된다.
4.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안 쓰면 보람도 없고, 맛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의미도 없고, 빛도 나지 않는다.
5. 성자와 함께하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와 함께해야 잔치하게 된다.
6. 인간끼리의 모임은 무의미한 모임이다.
7. 창조자와 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요, 사랑이요, 대화다.
8.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의 사랑이다. 계획한 일을 해야 보람이듯이,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과 계획한 일을 해야 보람을 얻으신다. 곧 그가 보내신 자를 통해 행하는 것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몰라서 못 하고, 못 맞아서 못 한다.
10. 상대성 동행이다. 상대성 사랑이다.
11. 상대성 만족이다. 상대성 사랑이다.
12. 자기 원하던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야 그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13.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14. 세상에는 자기가 원하는 축복의 선물들이 많다.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그 축복의 선물을 얻기도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주셔야 조건을 세우고 얻게 된다.
15. 금을 보아도 자기 것이 아니면 금으로 안 보인다.
16. 주인에게만 돌도 금으로 보인다.
17. 청중 속에서도 자기 아들딸만 보이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도 하나님께 구하고 조건을 세운 자들에게만 그것이 빛나게 보여 노력하게 하고 얻게 하신다.
18. 선생이 10대 때, 성자 주님께서 물이 꽉 찬 더덕을 선물로 주셨다. 그 더덕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옆에 있었는데, 그 길은 나물꾼과 나무꾼이 다니는 길이었다. 그 길로 더덕을 캐려고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수십 년 동안 못 본 것이다. 그 더덕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어 선물로 받고 캐 먹었다.
19. 보물은 주인이 아니면 육의 눈으로 봐도 안 보인다. 하늘이 주셔야 안다.
20. 그 환경, 그 처지에서는 그 환경의 보물을 주신다.

21. 사람들이 수년 간 수백 번 들었다, 났다 하면서도 안 주워가던 수석을 성자 주님은 나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니 딱 한 번에 줍게 하시고 “이것이다!” 하고 내 입으로 말하게 하셨다. 그 수석은 앞과 뒷면 모두 얼굴이 있는 두 얼굴의 형상적으로 나의 자화상이었다. 그 수석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수석 자화상이다.

22. 이 수석을 줍고도 몇 시간 동안 귀한 돌인 줄 몰랐다. 하루가 지나도록 옆에 놓고 보니 형상이 보였다. 한 쪽은 웃는 얼굴이었고, 다른 한 쪽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철모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기치를 벌인 군인의 담대한 모습이었다. 주님은 깨우쳐 주시기를 “이 돌같이 웃으면서 살고, 전쟁터에서 기치를 벌인 군인같이 살아라.” 하셨다. 그때 선생은 펄박자로부터 아주 극적으로 쫓기며 환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였다. 한 민족이 나를 쫓고 괴롭힐 때였다. 만주 벌판 부평초 신세의 때였다. 누가 내 뒤를 쫓아온다고 하여 흑룡강 쪽으로 수백 리를 차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150편의 시를 썼다. 환난 때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다.

23. 주인이 안 가면 폐허의 빈 집이 된다.

24. (주편) 월명동은 나 성자의 집이니, 갈수록 빛이 난다.

25. 이 시대는 길을 가다가 하늘이 주신 황금덩이를 발로 차다가 결국 발이 망가지고 절룩거리는 불구자가 되어 고생하며 다닌다.

26. 하늘이 보낸 자만 하늘이 주신 황금덩이를 귀히 보고, 황금을 얻고, 껴안고, 좋아하며, 따르는 자들과 잔치하며 산다.

27. 목이 탈 때 물을 줄 자를 그렇게도 미워하다니... 결국 목이 타서 사막에서 기약 없는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시대 소경들이로구나.

28.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신랑을 기다리던 자들이 땅에서 솟은 자를 보고 “안 돼!” 하며 갇은 악평을 퍼붓고 외면하더니만, 이제 늙은이가 되어 코가 땅에 닿도록 기어 다니는구나. 하늘 신랑을 맞은 자들은 늙지 않고 영과 육을 빛내며 시대를 잡고, 그 시대에 해당되는 1000년 역사 잔치를 한다.

29. 무지하고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은 자기 주장만 하다가 음부의 함정에 빠졌다. 악인들은 자동으로 지상에서 지하 음부로 사라졌다. 오직 의인들만 남아서 다시 오신 성자와 함께 그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 잔치한다.

30. 의인들이 이상세계 역사를 그만하겠다고 할 때까지 의인들을 짓밟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의 고통세계 역사가 연속된다. 그러나 누가 이상세계 역사를 그만한다고 하겠느냐.

31. 영원히 할 것이다. 그러니 영원히 기다려야 된다.

32. 선과 악은 ‘길’이 다르고 ‘위치’가 달라서 영원히 못 만난다.

33. 의인이 악인에게 평생에 딱 한 번 기회를 주어 며칠 동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의 말을 안 듣고, 도리어 의인을 가르치며 의인이 가진 것을 뜯어 가려 했다. 결국 때가 되니 서로 갈려 갔다. 악인이 깊은 음부에 가서 소식을 전해 오기를 “그때가 기회였는데 끝났구나.” 했다. 악인은 자기가 지옥에 갔기에 안다. 고로 그때가 따라갈 기회였다고 하며 탄식한다.

34. 의인을 만난 자는 그때가 기회다.

35. ‘성자 역사 시대’가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때다!

36. 육 재림 기간, 육 휴거 기간이다.

37. 순간 기회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

38. 순간 기회를 못 얻고 영원히 고통 받고 산다.

39. 깨달을 때 얻은 것도 뺏긴 것도 깨닫게 된다.

40. 옷이 화려해도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희망이 없다. 옷이 문제라도 얼굴에 이상이 없으면 희망이다. 마음은 얼굴이요, 옷은 행실이다.

41. 마음 선하면 행실이 더러워도 마치 옷을 새로 사 입히듯 행실의 옷을 갈아입혀 행하게 하면 금방 괜찮다.

42. 전능자 신도 인간이 시간을 안 주면 못 하신다.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보다 욕적인 시대일수록 ‘욕’이 죽어 주는 십자가를 지게 되고, 보다 영적인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정신과 마음’이 죽어 주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

2. 이 시대는 영적 시대, 정신적 시대라서 영적 십자가를 진 것이다. 영으로 인하여 욕도 그에 해당되는 만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는 고난도 되지만 영광도 된다.

3.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는 자가 변화된다.

4. 말씀을 깨달아야 뇌에 불이 붙어 행하게 된다. 고로 새 힘이 솟아난다.

5.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고로 말씀은 에너지이며 능력이다.

6. 뇌에 불이 붙어야 정신과 마음에도 불이 붙어서 몸으로 행한다.

7. 죄를 짓는 것도 ‘욕’이고, 의를 행하는 것도 ‘욕’이다. 욕이 죄를 지었으면 욕도 그 대가를 받지만, 결국 자기 영이 그 대가를 무섭게 받는다. 의를 행한 것도 그러하다.

8. 사람이 죄를 지어도 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의를 행해도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결과가 다르다.

9. 죄는 사망을 낳고, 의는 생명을 낳는다. 고로 죄의 결과는 지옥이며, 의의 결과는 천국이다.

10. 자기 욕을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라. 자기 영을 직접 보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11. 욕은 나무와 같고, 영은 열매와 같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1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같이 형상을 가지고 영체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에너지로 존재하신다. 사랑·진리·능력·힘·지혜·지식 등 수만 가지의 에너지로 존재하신다. 그 힘과 에너지로 천지와 인간도 창조하셨다.

13. 원 존재자이신 성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기에 인간도 역시 에너지로 존재한다. 그 힘과 에너지로 자기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14. 자동차도 에너지가 없으면 차만 가지고는 운행을 못 한다. 이와 같이 성삼위도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행하시고, 인간도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행하며 존재한다.
15. 인간이 신과 일체 될 때 신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발휘한다.
16. 인간은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다.
17. 육과 영의 신앙의 힘과 능력과 에너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다.
18. 의의 에너지가 약하면 사탄과 악인에게 끌려가게 된다.
19. 생명은 에너지로 존재한다.
20. 자기 힘과 능력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 자기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강해지고 능력이 일어난다.
21. 인간을 중심한 모든 존재물은 존재 에너지를 가지고 작용하며 산다.
22. 해·달·별도 지구도 자체 에너지로 존재하며, 상대 에너지와 작용하면서 존재한다.
23. 자기 에너지만큼 상대 에너지를 받는다.
24. 자기 에너지가 약하면 상대 에너지를 받아 힘을 얻고 존재하여라.
25. '에너지'가 약해지면 '사명'도 약해진다.
26. 사랑의 에너지는 강하다. 그러나 순간 약해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상대와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랑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27. 새 힘을 얻으려면 새 시대 보낸 자를 만나야 된다. 그를 만나 새 시대에 해당되는 새 말씀을 들어야 된다.
28. 새로운 이벤트로 새 힘이 온다.
29. 성자 본체와 그 육인 본체와 일체 되면 새 힘이 솟고, 능력이 솟고, 지혜가 솟는다.
30. 성자 주님 최우선의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독수리와 백조같이 변화되어 새 힘을 얻고 상공을 난다.

<2012년 7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옛것에서 변화되어야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는다.
2. 새 차로 바꾸면 새 힘이 나듯이, 새 시대 새 인물을 중심하여라. 그러나 역시 성자 중심이다.
3. 기도의 새 힘, 찬양의 새 힘, 말씀의 새 힘이다.
4. (주 편) 지금 누가 가장 강하게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뛰고 있느냐. 나 성자와 나의 본체와 하나 된 자다. 나도, 나의 본체도 그와 일체 되어 행하기 때문이다.
5. (주 편) 나 성자 본체는 안 보이니 육이 있는 자, 곧 나의 본체나 내가 쓰는 자를 보고 나를 보아라. 그로 인하여 나 성자의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라.

6. 성부, 성자, 성령의 힘을 받고 행해야 월명동같이 변화된다.
7. 아는 것이 힘ियो, 능력이다. 실천이 힘ियो, 능력이다.
8. 2012년이 무슨 해인지 일곱 가지를 깨닫고 행하여라. 그러면 올해의 뜻을 깨닫고, 뜻을 이루게 된다.
9. 성자 본체와 일체 되고, 성자 분체와 일체 되어라. 그리고 성자 분체와 일체 된 사명자와도 일체 되어라. 성자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 힘을 받아야 시골 논두렁의 뜰부기가 백조로 변화되어 호수에 살고 하늘 공중 높이 치솟듯이 변화된다.
10. 차원 높이 솟아야 인(人)사탄을 이기고 영 사탄을 이긴다.
11. 백조같이 깨끗이 변해야 휴거의 영이 된다.
12. 성령의 뜨거운 불을 충만히 받아라. 그러면 능력이 임하고 깨끗하게 된다.
13. 죄를 회개해야 힘을 받는다.
14. 시대 말씀 못 받는 자는 힘을 못 받아서 사탄에게 끌려 다닌다.
15. 섭섭함, 소외감, 불평불만, 의심을 가진 자와 성자의 욕을 험담하는 자는 마치 힘줄이 끊어진 자와 같아서 힘을 쥐도 힘을 못 받고 능력이 사라져서 자포자기하게 된다. 고로 일순간 사탄이 와서 끌고 간다.
16. 성자의 계시를 자꾸 보아라. 능력이 오고 힘이 온다.
17. 시대 말씀과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여라. 능력이 오고 힘이 온다.
18. 성자 주님께 네 사연을 고하고 대화하여라. 능력이 오고 힘이 온다.
19. 새벽에 기도하여라. 능력이 오고 힘이 온다.
20. ‘기도’는 힘이다. 능력이다. 변화다. 실천이다. 승리다.
21. 신앙의 잠은 힘을 소모시키고 힘을 약화시킨다. 근신하여라.
22. ‘정신’으로 힘을 받는다. 정신이 강한 자는 존재한다.
23. 정신이 강한 자에게는 전능자의 합당한 뜻을 행할 힘이 온다.
24. 매일 힘 받아라. 매일 힘이 필요하다.
25. 힘은 모았다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때그때 빨리 쓰기도 해야 된다.
26.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잡아 주어라.
27. 점진적 힘이다. 그러다 웅장한 차원에 이른다.
28. 본체와 분체는 수수 작용을 하고 서로 교통하며 힘을 발생시킨다. 고로 본체와 일체 되어야 한다.

29. 힘이 꺼져 가는 자는 힘 있는 자에게 가서 고쳐라.
30. 정상에서 이탈하면 힘이 빠진다.
31. 말은 힘이다. 고로 힘 빠지는 말은 듣지 말아라.
32. 악평자들의 말은 생명권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힘이 다 빠져서 악의 힘을 받고 하는 말이다.
33. 지도자는 힘을 받아야 약한 자들을 힘 있게 끌고 간다.
34. 작은 힘도 뭉치면 큰 힘이 된다.
35. 신약은 어제 해가 지듯 졌다. 오늘 성약의 해, 곧 성자의 해가 다시 났다.
36. 힘이 없으면 빈손도 올리기 힘들고, 힘이 있으면 코끼리도 다스린다.
37. 힘이 없으면 개미가 물어도 못 잡는다.
38. 힘만큼 다스린다.
39. 힘이 있으면 코끼리, 사자, 호랑이, 뱀을 다 잡아 다스린다.
40. 화평·사랑·믿음·서로 용서의 힘이다. 능력이다.
41. 논두렁의 뚝부기 같은 자들은 모두 변화를 받고 백조가 되어 호수에서 살고 하늘 공중으로 치솟아 휴거되어라.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속상하지만 이기게 할게.” (마지막 청산해야 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2. 성자 주님, 모두 이기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식사 전, 주님과 대화)
3. 배신자를 위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시대에 살아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더 잘하라고 참아 주는 것이다.
4. ‘혹시 저들이 돌아오려나?’ 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5. 이미 사망으로 가서 끝난 자를 위해 참을 필요가 있느냐.
6. 산 자들을 위해서 어서 못 한 것을 하라고 참으신다.
7.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참으시는데, 인간들이 때를 모르니 못 하고 끝난다. 결국 마지막임을 아는 자들만 목숨 걸고 행하여 영원한 죽음을 면한다. 고로 하나님의 마지막 참으심은 마지막 때를 알고 목숨 걸고 행한 자들을 위한 것이 된다.
8. 말씀을 듣고 마지막 기회의 때를 진정 알고 깨달은 자들은 행하게 되니,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
9. 죽음을 피하는 자는 그 순간이 죽음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는 자다.

10.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11. 심판자께서 마지막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자기 삶에 빠져 장사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며, 자기 사업에만 빠져 살았다. 그러다 지진·홍수·태풍·포탄 공격·화재·쓰나미 등 재해가 일어나 지구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죽었다.

12. 다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기회가 왔어도 안일했다.

13. 죽음 전에는 누구에게나 죽음의 신호와 예고가 ‘짹’ 하고 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14.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 기회는 성자의 재림 전 마지막 기회다.

15. 기도를 깊이 하면 확실히 안다. 마지막 기회의 때는 영의 생명이 살 기회다.

16. 때가 되어 늙어 죽는 자에게도 유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7.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마지막 기회를 다 주었는데, 그때 행한 자는 위기를 면하지 않았느냐.

18.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지 물어봐라.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답을 피하지 않으신다.

19. 때가 되면, 만물들까지 돌들까지 사람들이 쳐다보면 깨닫게 한다.

20.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이미 때를 선포하였다.

21. 사람들은 ‘마지막’ 하면, 지구 종말을 생각하며 지구가 싹 없어지는 것으로만 인식한다. 그런데 그동안 마지막이라고 했어도 지구가 싹 없어지지 않으니 잘 안 믿는다.

22. ‘마지막’은 구시대가 끝나는 마지막이다. 이때는 ‘영적 죽음의 때를 면하는 마지막’이다.

23. 지구 파멸, 지구 멸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기 영혼 멸망’이다.

24. 지구 한쪽이 무너져도 자기만 살아 있으면 된다.

25. 사람들은 ‘말세, 멸망’ 하면, 지구 파멸만 생각한다.

26. 지난날 전쟁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죽었을 때도 지구는 여전했다.

27.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을 두고 심판하셨을 때도 ‘영’들만 멸하셨지, 지구는 조용했다.

28. 마지막 때는 ‘지구 멸망’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자기 영과 육의 멸망’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여 죽음의 날을 피하라.

29. 자기 영혼의 멸망은 마치 육이 밤중에 걸어가다 절벽에 떨어지는 격이다. 영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죽음을 당한다. 영혼의 마지막이다.

30. 어떤 자연재해로 육이 죽는 육의 심판이 일어나는 때는 아주 적다.

31. 재해로 육의 심판을 하는 것은 그것을 거울로 삼고 영의 심판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32. 자기 욕의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이 사망으로 가는 ‘영의 심판’은 육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육신이 죽는 자들보다 500~1000배나 많다.

33. 기도하며 영계를 보라. 누구나 보고자 하면 본다.

34. 하나님의 마지막 때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지구 세상에 거의 다다.

<2012년 7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마지막 때 운명이 좌우된다.

2. 마지막 기회를 알고 행하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자다.

3. 마지막 때는 자기를 구할 메시아를 불러야 산다.

4.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아라. 마지막 때 꼭 역사하신다.

5. 자기 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 얼마든지 몸부림쳐 피하게 된다.

6. 어떤 사람은 운전 중에 순간 그때가 자기 삶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에서 뛰어내리고 사는 것을 보았다. 이같이 알고 행하면 산다.

7. 어떤 사람은 순간 그때가 자기 욕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자, 그 노선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과 구원자를 불러서 살았다.

8. 어떤 사람은 자기 영이 사망을 앞에 놓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자, 욕이 가던 길을 접고 마음을 다 접고 거기서 탈출했다. 그리고 그 욕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메시아에게 간구했다. 그러고 나서 영계를 보니, 그 영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손에 이끌려 사망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9. 마지막 기회의 때는 진정으로 기도해야 자기 욕도 영도 산다.

10.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죽음의 목전에서 나를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구해 주겠다.” 하셨다.

11. 우주와 지구와 인간이 창조된 이래 ‘영 휴거’는 한 번뿐이다. 6000년 구원역사 이래 ‘영 휴거’는 한 번뿐이다. 이는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요일인 토요일과 같고, 토요일 중에서도 그나마 오후와 같고, 오후 중에서도 서산에 해가 기우는 때와 같다. 이때가 지나면 반드시 일요일이 온다. 이와 같이 마지막 기회의 때가 지나면 성자 본체는 강림하시어 영적 휴거 역사를 하신다. 고로 자기 욕이 자기 영을 위해 행하여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낚야 된다. 그래야 환난이 와도 그 욕도 영도 환난과는 상관없이 없다.

12. 환난의 때가 오면, 이미 마지막 때는 지나가고 끝난 것이다. 환난 때는 영 구원을 못 시킨다.

13. 장마철에는 곡식을 못 말린다. 온 천지가 물바다이기 때문이다.

14. 겨울이 오기 전에 산의 꽃을 본다.

15. 마지막 때는 연장이 없다.

16. 때가 지났을 때는 온 지구 세상 사람들이 다 해도 안 된다. 지금 이때는 너희 각자의 마지막 기회의 때다.

17. 제때에는 어린아이라도 하면 할 수 있다.
18. 제때 하면 때가 90% 도와주는 격이라서 자기는 10%만 하면 된다.
19. 때가 지난 후에는 때도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100% 해도 소용없다.
20. 때는 하나님이다. 고로 하나님이 때에 맞춰 행한 자들을 그에 해당되는 위치로 데려가신다. 때가 지난 후에는 혼자라도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간다.
21. 때와 함께 하여라.
22. 제때 하면, 때가 도우니 혼자 해도 된다. 때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며, 나 성자다.
23.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의 말을 외면할 때, 때를 놓친다.
24. 마지막 때는 영혼들이 하늘로 치솟는 기회다.
25. 이 시대 마지막 기회는 이 시대에 태어나 알고 행하는 자의 것이다.
26. 누구나 꼭 휴거되기 위해 그 일에만 몰두하지 않으면 못 한다.
27. 나 성자는 너희가 진정 휴거되기를 원하고 행하는지 '너희 휴거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 본다.
28. 육신아! 네 육을 땅에서, 영을 하늘로 휴거시켜 놓고 놀아라.
29. 하늘로 휴거된 영은 신이 되어, 휴거 후에도 자기 육을 도와서 신이 되게 한다.
30. 휴거되기 전에는 육의 마음이 영의 마음을 잘 모른다. 휴거된 후에는 자기 육이 자기 영을 보면서 그 마음을 잘 안다.
31. 자기 영이 휴거되면,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의 교통을 하여 그 남자의 사랑을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듯이, 성자와 일체 되었기에 그 반응을 자기 육이 받아서 자기 영이 휴거되었다는 것을 거의 확실히 안다.
32. 그 날과 그 시는 성경 말씀대로 안 밝히고 진행한다.
33.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을 듣고 따른 자들만 소리 없이 따라간다. 사람들이 펄박하기 때문이다.
34. '휴거'는 휴거되는 자만 알고, 나 성자와 함께 휴거 역사에 동참하며 진행하는 자만 안다. 메시아가 땅에 와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해도 안 믿듯이, 휴거되는 것을 말해도 휴거되지 않는 자는 그 말을 안 믿는다.
35. 휴거는 '영'이 한다. 육신이 살아 있는 자는 영 휴거의 때, 영이 자기 육체를 이탈하면서 영만 휴거된다.
36. 완벽한 영만 휴거된다. 자기 육이 기도하여 자기 죄를 100% 회개해야 되고, 나 성자를 100% 믿고, 나의 분체를 100% 믿고 흠이 없어야 된다.
37. 비행기를 타야 공중을 날듯이, 나 성자와 나의 육과 일체 되어야 이룩하듯 하늘로 치솟아 휴거된다.

<2012년 7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계로는 안 보이니 모른다. 영의 세계를 보아라. (영의 세계를 못 보면, 영의 세계를 아는 보낸 자의 말을 들음으로 보아라.)
2. ‘휴거’는 ‘영’으로 하니,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
3. <육적 휴거, 육적 부활> 때는 육의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이루니, 육의 눈으로 육을 봐야 했다.
4. <영적 휴거> 때는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최대로 행해 줘야 된다.
5. 지상에서 <육적 휴거 역사>를 펴 나갈 때는 영이 자기 육을 위해 최대로 돕고 함께해 주었다.
6. 자기 영이 모자란 것은 자기 영이 못 한다. 육이 회개해 줘야 되고, 육이 주님과 일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영도 깨끗이 용서받고 주님과 일체 된다. 영을 위해서는 절대 육이 해야 된다.
7. 성자께 애원과 절대적인 간구다.
8. 육신이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행해야 산다. 이와 같이 지금은 영의 마지막 기회 때이니, 육이 자기 영을 위해 목숨 걸고 행해야 된다.
9. 성령 충만하여라. 말씀 충만하여라. 사랑 충만하여라. 믿음 충만하여라. 기도는 결사적이다.
10. 부족하다고 낙심 말고 빨리 행하여라. 너희 육이 과거에 행한 것을 너희 영이 가지고 있다. 육이 마지막으로 행해 주면 된다. 또한 성자 주님과 그 분체가 행해 준 것도 있으니, 그것도 계산하여라.
11. 육상 경주는 1등, 2등, 3등만 뽑는다. 고로 숫자 제한이 있다. 그러나 휴거는 1등, 2등, 3등만 뽑는 경쟁 휴거가 아니다. 누구든지 완전히 준비되면 휴거된다.
12. 휴거는 혼자 경주하듯이 한다. 그러니 의식 말아라. 각자 휴거다.
13. 몇 명만 뽑는 휴거가 아니다. 인원수에 상관없다. 성자께서는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의 영이 다 휴거되기를 원하신다.
14. 어떤 사람의 영을 보니 도착 지점 5m를 남겨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육은 “나는 아직 도착 지점의 반도 못 왔어. 자격이 안 돼.” 하며 포기하는 것을 영계에서 보았다. 영계에서 보니 그런 자들이 많았다. 이를 전체에게 말해 주니, 낙심 말고 열심히 하여라.
15. 영 휴거 지점에 도착한 자들도 계속 근신하며 행해야 된다. 영이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
16. 성자께 지금 어떤 것이 급하냐고 물었더니,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를 선포했으니, 전보다 70배나 더 이상적이다. 나 성자 본체가 직접 역사하는데도 전같이 행하면 절대 안 된다.” 하셨다.
17. 전에는 아들의 몸인 성자의 분체를 통해서 이 시대 신부의 몸인 분체에게 나타나 우리에게 역사하셨으나, 마지막 기회에 완전히 단장시키기 위해 성자는 이 시대 분체와 함께 신랑으로서 직접 나타나 이 시대 신부들에게 역사하신다.
18. 모르면, 힘을 못 받는다. 알면, 전보다 70배나 더 힘을 받는다.
19.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 있는 한 사람에게 물 한 병을 주면서 “이 물은 귀한 물이야. 이 물을 먹고 네 병이 나으

면 좋겠다.” 하였다. / 그 후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 병이 나았냐고 물으니 좀 좋아졌다고 했다. 물을 준 자는 말했다. “그 물이 무슨 물인지 알아? 네가 먹고 싶어 했던 월명동 약수다. 세 병을 떠 왔는데 한 병은 부모님 드리고, 한 병은 내 아내 주고, 한 병은 너 준 것이다.” 했다. / 그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기도하며 다시 그 물을 먹었다. / 그 후에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병이 다 나았다고 했다. / 알 때와 모를 때는 이같이 다르다.

20. 땅의 구원자인지 알고 믿느냐, 그냥 사명자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

21. 성자 본체를 분명히 알고, 그 본체를 분명히 알고, 본체와 본체가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야 휴거된다.

22. 소돔 땅의 롯은 심판을 피해 살았고, 롯의 아내는 1차로 피했으나 결국 죽었다. 롯과 롯의 아내의 차이점이 무엇 이냐? 알고 행한 것과 알았으나 분명히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 차이점이다.

23. (주 편) “이리로 가면 사는 길이고, 저리로 가면 죽는 길이다.”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확실히 아는데도 죽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이 시대 나의 육을 통해서 너희에게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수백 번 가르쳐 주었다.

24. (주 편) 가르쳐 주는데 오지 않고 관심이 없는 자가 어떻게 알고 행하겠느냐.

25. (주 편) 너희는 지금 “알고 행하느냐,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 운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

26. (주 편) 나 성자는 너희의 신랑이요, 너희는 나의 신부다. 나는 신부들에게 사는 길을 다 가르쳐 주었다. 고로 나는 마지막 기회를 배워서 아는 너희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오겠느냐.

27. (주 편) 알고 있는 너희가 현재 20~30%만 준비했어도 모르고 사는 자들보다 휴거될 가능성이 높다. 고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28. (주 편) 나의 본체는 육이다. 매달리기만 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서 매달려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그를 100% 믿어 주는 것이 그가 목이 타서 기진할 때 물을 주는 격이고, 그가 배고파서 쓰러질 때 음식을 주는 격이다. 이를 알고 나의 본체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29. (주 편) 지금 이때가 너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다!

30. (주 편) 기도하는 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안다. 이때는 섭리인 모두 해당되는 때다. 지금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의 때다.

31. (주 편)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라. 나의 본체를 위해, 너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섭리사 환난을 놓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응답을 받도록 하여라. 기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해 주련다. 나 성자의 말을 믿어라.

32. (주 편) 너희 영이 마지막으로 나 성자와 일체 되도록, 너희 영이 마지막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마지막 기회의 때다.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신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자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새 시대 새 역사를 펴실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약시대 나사렛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미 이루고 끝나기도 했다.

2. 인간은 어떤 것을 만들 때 ‘말’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손과 몸을 움직여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 /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만드실 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존재물들이 1차, 2차로 만들어진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즉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3. 사람도 기도하면, 말로만 했는데도 아픈 자 병든 자가 실제로 고쳐진다. 이와 같이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이 손과 발이 되어 그것들을 모아지게 하여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4. 한번은 생시에 천사가 옆에 있기에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 천사의 손을 잡고 살을 만졌다. 그 살의 느낌이 그렇게도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사람의 살을 만진 것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었다. 너무 신기해서 천사의 여기 저기를 만지며 확인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했다. “천사는 영체이니, 사람들은 천사가 이같이 살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확실히 아니 말해 준다.” 했다. / 천사는 내게 “이제 그만 확인하세요.” 하며 느낌으로 표현했다. 그래도 내가 더 확인하며 만지니까 천사는 ‘찌릿!’ 하는 느낌을 강하게 보냈다. 상대적으로 느낌이 오는데, 그 힘이 200볼트 전류처럼 강했다. 손이 찌릿하며, 감전된 듯 한 손을 타고 온몸까지 찌릿해서 더 이상 천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손을 뗐다. / 천사는 얼마든지 그 영체의 몸을 통해서 강하게 능력을 보낸다. 느낌으로 전해 오는 그 몸의 능력이 천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생시였다. 그 천사는 경호 천사였다. / 그 천사한테 물어보니 “좋은 때는 몸의 능력을 사랑의 느낌으로 쓰기도 하고, 싫을 때는 몸의 능력을 저를 보호하는 무기로 씁니다. 이 능력을 무기로 삼고 사탄과도 싸우고, 제가 보호하는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천사라면 모두 다 그러한 무기를 몸에 가지고 있기에 능히 사탄을 물리치고, 무장한 사탄의 군사들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했다. /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창조하시려고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 자연만물이 탄생되고 형체가 되어 차원별로 큰다는 것이다.

5.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신의 기가 나가서 병도 고치고 만물도 주관하게 된다.

6. 천사들은 각자의 사명대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초능력의 생각들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7. 천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차를 뒤엎기도 하고, 바닷물을 흔들기도 하고, 태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야수를 막고 친다. 또한 그 능력으로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하게 하기도 하는 등 인간이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는 각종의 일들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실권과 능력으로 사탄을 무찌르기도 하고, 직접 가지고 다니는 무기로도 사탄을 무찌르기도 한다.

8. 천사는 자기의 활동을 사람들이 못 보게 ‘능력’으로 자신을 가린다. 마귀도 자신을 숨기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천사의 능력이 훨씬 더 월등하다.

9. 천사들도 사역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위치에 가서 사역을 한다.

10. 창조주 하나님은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자기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능력’을 넣고 창조하셨다. 또한 만물들 중에서 생명체를 가진 물고기들과 동물들도 자기를 보호하는 기를 발사하도록 창조하셨다.

11. 물고기 중에도 전기를 일으키는 물고기들이 있다. 이 물고기들은 자기 몸에서 수백 볼트의 전기를 발사하여 상대를 죽이거나 마비시키며 외부 침입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예 : 전기뱀장어, 전기메기, 전기가오리)

12.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쓴다. 고로 천사는 그 능력으로 사람을 돕되,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합당하게 응답받은 것만 행하여 돕는다.

13. 고로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리도 크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14. 천사가 구원받은 하늘의 생명들을 보호할 때는 알아서 보호하기도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돕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더욱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된다.

15. 기도 중에 지상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 선생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공적인 일을 하러 간다고 나가려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배가 중하지, 일이 중하냐?” 했다. 그랬더니 그는 “지금 저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다 주님의 일이지요!!” 하고 큰소리치며 내게

대들었다. 그는 나를 잘 모르는 자였다. 교회를 다니며 주님의 일은 하고 있었지만, 선생을 잘 모르는 자였다. / 결국 서로 손으로 밀치며 겨루었다. 그는 몸이 크고 손도 컸다. 나는 몸도 작고 손도 작았다. 그가 내 팔을 잡아 꺾더니 “작아도 힘이 엄청 강하네!” 했다. / 불의를 보고 그냥 놔두면, 내가 할 일을 못 하기에 사방을 쳐다보며 나를 도울 자가 있는지 보았다. 그런데 흐지부지하게 장면이 사라졌다.

16. 다시 기도를 깊이 하면서 ‘아까 지상 영계에서 보았던 그들을 그냥 두면 제 마음대로 크겠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 기도가 끝날 무렵에 다시 아까 그 장면이 다시 보였다. 그들은 다시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 내게 왔다. 말씀 시간이 늦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었다. / 기도하며 깨닫고 보니, 내가 먼저 그들을 대하는 대로 그들도 나를 대했다.

17. 영계에서도 내가 먼저 상대를 ‘선’으로 잘 대해 줘야 상대도 나를 ‘선’으로 대해 주었다.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마찬가지다. / 그들이 잘못했기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니,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이 맞다며 주장했다. 내가 기도하니 상황이 좀 좋아진 것을 주님이 보여 주셨다. 기도하여야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상황이 좋아진다.

18.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오직 ‘선’으로 싸우고 이겨야 불의로 가는 자가 선의 세계로 가게 되고, 자기중심대로 불의로 싸우면 불의로 가는 자는 결국 불의의 세계로 가게 된다.

19. 불의한 곳으로 가는 영혼을 보고, 자기를 희생하여 참아 주고 ‘선’으로 대하여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가게 해 주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시고, 그 공적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시리라.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먼저는 ‘육’에 속한 것이고, 다음은 ‘영’에 속한 것이다.

2. 성자 메시아는 먼저 육에 속한 ‘육’을 사망, 즉 어둠에서 나오게 구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을 사망, 즉 어둠에서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내신다.

3. ‘구원역사’도 먼저는 율법을 주어 육에 속한 구원역사인 <구약역사>를 펴 나가고, 이어서 성자가 오셔서 신약의 사명자를 통해 신약말씀을 주어 영에 속한 구원역사인 <신약역사>를 펴 나가고, 성자가 다시 오셔서 성약의 사명자를 통해서 신약의 터전 위에 ‘완성된 영적 역사’인 <성약역사>를 펴 나간다.

4. 개인의 신앙 역사도 먼저는 육적인 것이고, 그다음이 신령한 영적인 것이다.

5. 설교도 먼저 ‘육’에 속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영’에 속한 신령한 역사의 말을 해 준다. 그래야 육도 영도 성장한다. 이러한 설교가 인본주의적 설교가 아니다.

6. 성자는 초림 때 땅의 메시아의 입을 통해서 항상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를 해 주며 육에 속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영에 속한 신령한 이야기를 해 주며 육과 영에 대한 설교를 해 주셨다. / 또한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해 주면서 육에 속한 것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신령한 신본주의 설교를 해 주셨다.

7.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은 세상 철학 이야기, 육에 속한 이야기만 한다. 인본주의 설교다. 고로 듣는 자들이 모두 육적인 자들이 되었다.

8. 설교는 항상 육적인 것을 먼저 말씀에 주어 깨닫고 알게 해 주고, 이와 같이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뜻도 그러하다고 말해 줘야 듣는 자들이 잘 알아듣고 신령한 자들이 된다. 이것이 전능자 성자의 최첨단 설교 방법이다.

9. 먼저 보이는 육의 구조를 말해 주고, 영의 구조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말해 줘야 이해한다.

10. 인본주의 설교는 항상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난다.

11.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시에나 꿈에나 계시해 주시는데, 항상 어떤 것을 보여 주시며 그와 같이 신령한 세계의 것도 그러하다고 계시해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육적으로 본 것만 생각하여 문자적인 것만 알고 끝난다.

12.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양 100마리 중에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만 해 주고 만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나는 양의 목자이고, 너희는 양이다.”라고 근본을 계시해 주신 것이다.

13. 성자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열지 못한 것을 보고 저주하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신앙의 열매를 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안 열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계시해 주셨다.

14. 성자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15. 지금은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직접 계시해 주시는 때이며, 때마다 성자께서 합당한 자를 쓰고 계시해 주시는 때다.

16.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통해 매일 계시해 주시지만, 미련한 자들은 계시를 받아도 몰라서 고통을 받고 제 갈 길 못 간다.

17. 선생이 편지로 그렇게도 성자 주님의 계시를 전해 줘도 나이가 20대 중반, 30대, 40대인데도 안 듣는다. 가다가 몇 년씩 가시밭길로 갈 때 그제야 알 것이다. 개도 한두 번 만에 말을 들었다. 그런데 섭리인들은 보통 몇 번 말해도 안 듣는다. 어떤 자는 1년, 2년, 3년씩 말을 안 듣고, 어떤 자는 10년, 20년씩 말을 안 듣고 따라온다. 흑암에 가서야 나를 찾을 것이다. 그때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18.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19. 사람을 쓸 때는 자기 말을 잘 듣고 빨리 순종한 자를 쓰지, 어느 누가 1년, 2년, 3년, 5년 동안 말을 안 들으면서 심정 터지게 하는 자를 쓰겠느냐. 사명자는 정신과 생각이 아주 예민한 무전기 안테나와 같다. 그래야 하늘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때가 가면 사명자도 위험한데 거기 있겠느냐.

20. 어리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따라오는 자들만 데리고 간다. 이제 시대의 비밀을 모두 가르쳐 주었기에 한 가지를 더 안 가르쳐 주더라도 행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 땅에서 육이 휴거되고, 영도 하늘로 휴거된다. 몰라서 휴거되지 못했다고 하는 자는 오늘 이 날에 처음 온 신입생이다.

21. 모두 말씀을 지켜라. 이제 지키는 것만 남았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휴거되는지, 육적 휴거와 영적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며 무려 300번이나 설교했다. 또 성자 주님께서 계시자들을 통해서 2000편 이상 계시해 주었다.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말씀을 들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지켜라. 너희 모두에게 때가 다가왔다.

22. 나의 말을 성자의 말같이 듣고 믿고 온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성자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자!

23. 마지막 기회라서 모델이고, 치어고, 예술을 하는 자들이고 최우선으로 빨리 해야 될 것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100% 단장하는 것이다. 고로 ‘진리’로 무장하라고 말했다.

24. 오늘 새벽 기도 중에 한 영계의 장면이 보였다. 그 날은 혼인 잔치라서 나는 혼인 잔치를 가려고 나왔다. 그런데 섭리인들이 모두 제 할 일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이다! 뭐하냐?” 하고 한마디 했다. 조은 목사를 보니,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챙기고 있기에 “하던 일을 멈추고 빨리 가자! 남 챙기다가 너 못 간다.” 하고 소리를 질러서 뛰게 하고, 나도 같이 뛰다가 장면이 사라졌다. 나머지는 목욕하고 옷 입고 가야 되는데 물가에 있는 것만 보고 왔다. 항상 선생이 맨 마지막으로 가니, 내 뒤에 따라오는 자는 더 이상 없는 것이었다. 고로 아직 물가에 있는 자들은 못 오는 것

이다.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대강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25. 기성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300번 이상 성자의 말씀을 전해 주고, 2000편 이상 성자의 계시를 주었으면, 시대 사명자를 더 깨닫고 알고 좇음으로 더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것이다.

26. 좋은 기회를 놓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자들이 누구이겠느냐. 이 시대 깊은 비밀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한 너희들이다. 시대 말씀을 기성인들이 들었느냐, 이방인들이 들었느냐. 시대 말씀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25년씩 들은 자들은 너희들이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휴거된 영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그 육도 영도 구원받고 휴거되어 지상에서는 할 일을 다 한 자가 된다.

27. 휴거 역사가 끝나면, 우리가 주님을 불러도 “이제 끝났다.” 하신다. 그리고 성약역사 1000년의 기간 동안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않은 자를 주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달라진다. 휴거된 영은 주님의 애인이며 신부이니까 하늘같이 대해 주시고, 휴거되지 못한 영들은 신약권 자녀의 입장으로만 대하신다.

28. (성자 주님은 그 날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다.) 그동안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울리고 나의 심정을 몰라주었다. 그들의 영이 휴거되지 않아도 나 성자가 할 일을 못 해서 휴거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니, 후회 없다. 그가 휴거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미 다른 자에게 역사하여 다른 자의 영이 휴거되었다. 고로 미련 없다.

29. (성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잠자는 책임분담은 100%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놓고서 기도하는 책임분담은 안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구나. 전해 주어라.

30. ‘마지막 기회’를 좌우명으로 삼고 마지막 기회에는 기필코 행하라고, 성자께서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를 ‘성자가 주신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지난날 마지막 기회임을 확실히 알고 행한 자는 성자가 함께하심으로 다 승리했다.

31. 마지막 기회의 때에 행한 것에 따라 현재 자기 인생이 좌우되고, 자기 영의 운명이 영원히 좌우된다.

32. 선생도 주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알려 주셨을 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육신이 죽을 고비에서 20여 번 살았다. 그때 다 행했다. 식음을 폐하고 몸부림쳤다.

33.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양 옆의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얻었다. 그때 우측 강도는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따랐다. 그러나 좌측 강도는 마지막 기회에 때에 “당신이 구세주인데, 왜 자기 자신은 못 구했느냐.” 하며 악평하고 빈정댔다. 시대가 악함으로 땅의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류를 구하고 제2차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길인데, 자기가 악한 대로 그같이 말한 것이다. 고로 좌측 강도의 영은 지옥으로 가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옥에서 살고 있다. 우측 강도의 영은 낙원에 가서, 거기서 큰 사명을 받고 나사렛 예수님을 모시며 복음을 외치고 있다.

<2012년 7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하나님의 정한 법이다.
2. 기도해야 나 성자도 너희를 도와 일하기 쉽다.
3. 기도를 안 하면 허무하다.
4. 나의 소원은 개인마다 온전히 만드는 것이다.
5. 모두 전능한 나 성자로 인하여 소망도 얻고, 기쁨도 얻고, 사랑도 얻고, 물질도 얻어라.

6. 너희 각자에게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을 찾아 구하여라!
7. 주고받는 것이 기쁨이다.
8. 사랑을 완성하려면 매일 회개다.
9. 용서 없이는 사랑을 얻지 못한다.
10. 용서해야 용서의 문으로 들어간다.
11. 나 성자가 보낸 자가 '용서의 문'이다. 그가 곧 나다.
12. 회개해야 얻는다.
13. 시대 문으로 들어온 자만 내가 알고 대한다. 시대의 문은 나 성자다. 고로 간구하여라. 그리고 시대 보낸 자를 찾아라. 그래야 문으로 들어간다.
14. 마지막 이때, 회개의 때다.
15. 수고하고 깨닫고 안 자에게만 내가 줄 것을 주어 기쁨을 누린다.
16. 환난 중에 기뻐하여라. 환난을 당해도 의인에게는 다른 것을 또 준다.
17. 환난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될 것도 있다.
18. 의인으로서 환난으로 치러야 할 조건이 있으니 피하지 말고 받아라. 그러므로 복을 받아라. 그 복은 그 길을 통해서만 준다.
19. 구원받을 자들도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가 겪으며 가는 것을 겪으며 가야 된다.
20.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살지 않으면 허무하고 곤고하다. 이는 그 영도 마음도 일시적인 삶을 살면서 허공에 떠서 살기 때문이다.
21. 창조주의 상대가 되어서, 그가 보낸 나 성자와 일체 되어서,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서 영원한 세계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허무하지 않다.
22. 사람은 그 욕도 마음도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다.
23. 고로 사람은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원하고 확실하다!
24. 인간끼리는 허무하다. 인간의 상대체인 영원하신 창조주와 일체 되어야 허무하지 않다.
25. '허공'은 허무하다. 고로 허공에서는 마음을 못 잡는다. 영원하신 전능자 삼위일체와 마음과 몸과 영이 일체 되어야 허무함도 없고 공허함도 없다.
26. 어느 때는 자기가 살아 있는 것을 못 느끼고, 어느 때는 자기가 살아 있음을 느끼니 살아간다. 이는 인생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이다.
27. 사람이 세상 학문을 배우고 공부하여 지식의 수준을 높이고, 세상의 지혜를 얻고 살아도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아

니다. 신과 함께 ‘영’을 만들어야 된다.

28. 마음이 강해도 육의 세계는 허무, 공허, 허탈의 세계다.

29. 사람은 ‘삼위의 마음’으로, ‘삼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육이 자기 영과 교통하고 자기 마음과 교통하며 살아야만 허무, 허탈, 공허를 벗어나 어느 때는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육체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30. 오직 전능자와 삶의 일체다.

31.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32. 사람은 ‘몸’으로 살아가고, ‘마음’으로 살아간다.

33. 무의미한 삶은 삶을 더욱 허무하게 한다.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열렬히 사랑하며 살듯이, 지음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삼위 일체만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구에 살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듯이,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목적하고 창조하셨다. /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몸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목적’만 이루는 데 쓰면서 살고 있다.

3. 인간이 전능자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육’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영’이 육의 행실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면, 육신이 죽으면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4.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성자는 세상에 오셔서 창조 목적을 깨닫고 사는 자를 사랑의 대상체로 택하시어 그와 일체 되어 그 육신을 통해 인간의 삶을 가르쳐 주시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구원’이다.

5.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자기 몸과 사랑’을 쓰지 않고, 각자 ‘자기 존재’를 위해서만 ‘자기 몸과 사랑’을 쓰면서 살고 있다. 고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다. 그러니 살아도 허무와 곤고요, 영원성 없이 단지 육신만을 위해 살다 끝난다. 그 육신이 ‘자기 존재의 목적’만 위해서 사니, 그 영도 똑같이 육과 같은 형체를 이루면서 살다가 육이 죽으면 그와 같은 영의 세계로 간다. 그 세계는 곧 지옥이며, 혹은 음부와 흑암 세계다.

6. ‘육’이 ‘땅’에서 삼위일체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뜻인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 때, ‘영’도 육의 행실대로 변화되어 천국의 영이 된다. 육을 통해 영이 창조 목적을 이룬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육이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신부로서 살아간다.

7. 자기 존재를 위한 목적은 이룬다 해도 일순간 육신의 삶의 목적이라서 순간순간 허무하게 지나가고 끝난다.

8. 육신의 삶의 목적은 그때마다 원하는 것이 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얻고 끝나게 된다. 고로 허무하고 공허하다. 영원한 미래가 없다. 영원성이 없다. 영원하려면,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체 된 삶을 살아야 된다.

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삼위 중의 한 분인 '성자'께서 총책임을 지고 행하신다. 성자는 땅에 육이 있는 자. 곧 그의 분체를 택하여 그를 육신으로 삼고 보이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고로 성자의 분체를 따라서 성자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10.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도 각자 얼마나 사랑의 세계를 이루며 뜻 있게 보람 있게 사느냐는 각자 책임에 따라 좌우된다.

11. 창조 목적 '사랑의 삶' 속에 구원도 들어 있고, 위함도 들어 있고, 섬김도 들어 있고, 믿음도 들어 있고, 수만 가지가 다 들어 있다.

12. 오직 사랑의 역사다.

13.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깨졌다. 찢값을 받고 형벌을 받은 후에 다시 하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아담과 하와 때 창조 목적의 뜻을 시작했지만, 사탄이 꾀어 타락을 했기에 구약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 그 후 때가 되어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분체로 삼으시고 2000년 동안 1차 아들 차원으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셨다. /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다시 재림하시어 시대의 한 육신을 분체로 택하여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이 역사는 지금 진행 중이며, 1000년 동안 펼쳐진다.

14. 땅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절대 행하며 사니 사랑의 세계, 사랑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절대 창조주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려 오신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삶이 육도 영도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삶이다.

15.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들의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성자가 재림하신다. 그리고 휴거된 영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고 혼인 잔치를 하신다.

16. '육'은 육으로서 땅에서 창조 목적을 행하며 육적 휴거 역사를 이루고, 이 과정에서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 성자가 재림하시면 그 영들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창조 목적을 행한다. 천국에서 혼인 잔치만 1000년 동안 한다.

17.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18. <육신 존재의 목적>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목적을 두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것이다.

19. 그러나 인간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자기 사랑의 목적으로 살고 있다.

20. 창조 목적을 이루었어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느냐에 따라 보람을 느낀다.

21. <성자 재림시대>는 하나님 창조 목적 실현 시대다.

<2012년 7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 육과 영은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여 늙고 끝나는 격과 같다.

2.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 육의 행실을 영이 받아 영도 영원히 하나님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3. 성자 주님을 믿기만 해도 안 된다. 좋아만 해도 안 된다.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해도 안 된다. 그의 목적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자 주님을 진정 사랑하여 신랑으로 맞고 그의 신부가 되어 살아야 창조 목적을 이룬 자가 된다. 그런

자의 영만 휴거의 영이 된다.

4. 기도 시간에 조건적 기도만 해도 안 된다. 기도 시간에 성자 주님이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을 주님과 대화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책임을 해야 할 기도를 해야 된다.

5. 마음을 비우고 사랑의 주체에 따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라.

6. 성자 주님과 얼마나 사랑하며, 성자 주님을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며 사느냐에 따라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차원이 달라 그에 따른 위치가 정해져 살게 된다.

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137억 년 이상의 긴 시간을 들여 천지 만물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한 목적을 꼭 이루고 마신다. 그 목적은 인간의 육이 하나님과 성자께서 보내신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전능자를 믿고 그가 보내신 성자를 믿어야 알게 된다. 오직 성자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에 땅의 사명자도 알게 된다.

8.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 루시엘은 그 뜻을 반대했다. 이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기 때문이었다.

9.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비유> 어떤 왕이 자기 후궁들과 신하들을 통해서 사랑의 만족을 못 하니, 다른 사랑의 대상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후궁들 중의 한 명이 반대한 것이다. 결국 그 후궁을 궁에서 쫓아내고, 뜻한 대로 사랑의 대상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궁에서 쫓겨난 자가 이를 알고, 왕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자를 속이고 거짓말하여 사랑이 깨지게 했다. 왕이 이를 알고, 궁에서 쫓겨난 자를 죽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다. 그 말을 듣고 속고 사랑을 깨뜨린 자도 왕비가 될 것인데, 형벌로 인하여 인생이 끝나게 됐다.

11.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반대한 천사가 변질되어 극렬한 사탄이 되었다. 그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을 극단적으로 막고 고통을 주고 해를 주었다. 사탄은 쓸 데는 쓰고, 그 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이다.

12.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다가 곳곳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변질된 영들이다.

13. 아예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은 자들의 영들이 사탄에게 꺾여 악한 영이 되기도 했다.

14. 하나님을 벗어나 선과 악의 중간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영들도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따르는 주관자를 섬기며 산다.

15. 영계도 육계와 같다. 육계에서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산다. 아무도 안 섬기고 자기만 섬기며 사는 자들도 있다. / 육신이 살 때까지는 그냥 놔두지만, 그 육신이 죽으면 육신의 행위대로 그 영이 그 위치의 영계에 가야 된다. / 영의 세계에서도 영이 존재하는 기간이 있다. 그때까지 그냥 놔두고, 영의 행위에 따라 자꾸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서, 결국 뒤로 돌아 나오지 못하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으로 올 기회를 주신다. /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에 비할 수 없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계절 속에 식물들이 죽고 없어지듯이 결국 처리된다.

16. 지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영의 세계는 복잡하다. 지구는 생명 공장이다. 지구 역사가 끝나야 영의 세계도 정리된다.

17. “하나님은 사탄을 왜 안 없애시지?” 하며, 하나님께 의문을 품지 말아라. 너만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사탄과 상관

없다.

18. 양이 주인집 안에 들어가면 이리, 사자, 야수들이 몰려들어도 아무 상관없다. 인간도 하나님 품에 온전히 들어가면 사탄과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

19.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을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이 영원히 정리하신다. 예정해 놓으셨다. 지구상에서 사탄의 핏을 받고 돌이지 않은 자들의 영들도 그때 같이 심판하신다.

20. 전능자 하나님은 절대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 목적은 결단코 행하신다. 그 목적만을 위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이끄신다. 이 시대에 마지막 근본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목적을 밝히셨다. 누구든지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21.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모두 구약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았다. 고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셨다. 그래도 구약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고로 그들은 구약급 천국에 가 있다. / 같은 천국이라도 구약급 천국과 신약급 천국과 성약급 천국이 다 다르다. 한 나라의 같은 수도권에서 살아도 각자 삶의 차원이 다르듯 다 다르다. / 천국은 빛으로 가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가는 상상도 못 하게 넓은 곳이다. 시대별로, 각자의 급수와 차원대로 위치를 정하여 살게 해 놓으셨다. 땅에서 육신이 어느 시대로 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며 행하며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영이 천국에서 사는 위치가 정해진다.

<2012년 8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은 육적으로 영의 천국을 맛보라고 창조한 세상이다.

2. 이 세상은 육의 몸으로 살기에 사랑도 육적으로 느끼고, 육적으로 누리고, 육적으로 맛을 보며 사는 세상이다.

3. 영의 세상은 영의 몸으로 살기에 천국도 영적으로 누리고, 사랑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

4. 육의 몸으로 육적으로 누리는 것은 마치 남녀 어린아이가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과 같고, 영의 몸으로 영적으로 누리는 것은 마치 성장한 남녀가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과 같다.

5. 영으로 누리는 것과 육으로 누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누려 본 자만이 안다.

6. 여름에 얼음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기며 시원함을 느끼는 것과 계절이 바뀌어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 다른 것같이, 세상 육으로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과 영으로 천국에서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차이가 있다.

7. 여름에는 얼음과자를 먹어도 갈증이 난다. 이와 같이 ‘육’은 사랑을 주고받아도 한계에 부딪혀 갈증이 난다.

8. 똑같이 사랑해도 <세상의 육의 사랑>은 시원한 가을같이 느껴지고, <천국의 영의 사랑>은 북풍한설 겨울같이 느껴진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본질상 차이가 있다. 영과 육은 수백만 배나 더 차이가 있다. 영과 육은 비교가 안 된다.

9. ‘영의 몸’으로 느낄 때는 마치 전기 고압선을 몸에 대는 것같이 강하게 느낀다.

10. 영 자체는 신령체라 어떤 것을 느낄 때는 전신으로 느낀다.

11. ‘육의 몸’으로 느낄 때는 얼음에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만 차갑게 느낀다. 그러나 ‘영의 몸’으로 느낄 때는 손가락만 대도 전신이 동일하게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 느낀다.

12.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지체의 모든 것을 느끼듯,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13. 육은 영보다 느낌이 아주 둔하다. 고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에 대해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느끼는 것이 아주 둔하다. 마치 옷 위로 살을 만지는 감각이다. 영으로는 옷 없이 살을 만지는 감각처럼 아주 예리하다.
14. 영에 속하여 영으로 해야 제대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확실히 알게 된다.
15. 육에 속하여 육으로 보는 자는 가리고 보고, 덮고 만지는 자와 같아서 둔감하다. 영으로 보고 만져야 확실하다. 기도해야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영의 눈으로 보고 영으로 만져 보게 되어 확실히 알게 된다.
16. 영 자체는 ‘뇌’와 같은 핵이다. 고로 영으로 하면 전체가 느껴지고, 영은 신이라서 신같이 느끼고 안다.
17. 육으로는 여름철에 선풍기로 시원함을 느끼는 것과 같고, 영으로는 추운 겨울철에 차가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
18. ‘육’은 그 순간만 느끼고 보는데, ‘영’은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느끼고 본다. ‘육’은 무엇을 느끼고 봐도 순간 뇌에서 느끼고 사라지는데, ‘영’은 늘 느끼고 본다.
19. ‘육’으로 하면 물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고, ‘영’으로 하면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물을 느끼는 것과 같다.
20. ‘육’으로 하면 그 일을 쳐다보는 정도로 느끼는 것과 같고, ‘영’으로 하면 그 일을 직접 행하면서 느끼는 것과 같다.
21. ‘육’은 생각하는 삶과 같고, ‘영’은 실존의 삶과 같다.
22. 기도하여 신령해야 영의 삶이 이루어져 실존의 삶이 이루어진다.
23. 육은 영의 연습용이다.
24. ‘육’으로 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말로 “우리 사랑하자” 하는 것과 같고, ‘영’으로 하는 것은 남녀가 실제 몸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 고로 영으로 행해야 성자 주님과 통하지, 육으로는 안 통해진다. 기도하여라. 기도해야 실제 영으로 통한다. 사랑도 인간이 육으로 하는 것은 아주 둔하고 무감각하다. 영으로 사랑해야 육도 영도 오래 사랑을 느끼고, 실제로 사랑이 연속된다.
25. 전도도 ‘육’으로 하면 이론으로만 하는 것과 같다. ‘영’으로 해야 실제로 행하는 것과 같다.
26. 육의 삶은 영을 만들기 위한 설계와 같다.
27. 영으로 기도해야 오래 한다. 육으로 기도하면 오래 하지 못하고, 느낌도 별로라서 하다가 만다. 육적인 자는 둔해서 영이신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못 느끼고 모른다.
28. 사랑도 ‘육’으로 하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과 같고, ‘영’으로 하는 것은 몸으로 실제 사랑하는 것과 같다. / 고로 모든 일을 영으로 하여라. 휴거도 영의 휴거다. 육은 땅에서 휴거돼도 땅을 면치 못한다. / 기도하여 신령하여라. 그래야 영으로 모든 일을 한다. 설교도, 강의도, 평소 하는 말도, 기도도 영으로 하여라. / 영으로 해야 사탄이 물러간다. 사탄은 육으로 하는 자를 친다. 영으로 하면 사탄이 진다. 육으로 하면 약하여 사탄이 유혹하고 꾀기 쉬우니,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육을 공격한다.
29. 신령한 영의 찬양, 영의 예술이다. 육이 찬양하고 육이 예술을 하면 허탈감이 들고, 감동도 느낌도 한계가 있다.

30. 영으로 하여라. 그러면 욕도 영과 같이 빛을 발한다.

31. 영적으로 보면 한 길이 보이고, 욕적으로 보면 헛갈리게 여러 길이 보인다.

32. ‘욕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는 어린아이가 건성으로 보는 것과 같고, ‘영의 생각’으로 하는 자는 과학자가 자세히 보는 것과 같다.

3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인간은 어려서 자기 수준만큼만 느끼고 깨닫는다.

34. 영적인 사람은 보통 10년, 30년, 70년, 100년씩 앞날을 내다보고 행하고, 어떤 것은 1000년, 2000년씩 앞날을 내다보고 일을 한다.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서 행하기 때문이다.

35. 영적인 자 앞에 욕적인 자는 항상 영의 세계 원시인 같다. (그림)

36. 섭리사에서도 영적인 자와 욕적인 자가 쪼개져 가고 있다. ‘말씀’은 영적이지만, ‘자기’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세상 욕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37. 구시대인들은 지극히 욕적인 자들이며, 새 시대인들은 새로운 말씀과 신령한 자를 맞은 고로 영적인 자들이다.

38. 욕적인 자는 욕성과 혈기와 욕망이 강해서 항상 영적인 자를 배척하고 외면하고 핍박해 왔다.

<2012년 8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만큼 사고 나고, 모르는 만큼 문제 생긴다.

2. 마치 깨끗한 행주로 그릇을 닦듯이, 성자의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라.

3. 많이 닦은 마음과 덜 닦은 마음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4. 하나님의 역사는 그동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더러워진 것들을 닦아 왔다. 구약 때도 형벌을 받으면서 닦아 왔고, 신약 때도 사람과 역사를 닦아 왔다. 성약 때는 그 터전 위에 하늘과 인간이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신랑이신 성자와 신부들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5. 뇌에 불이 붙어야 된다.

6. 영적으로는 뇌가 과일이다. 뇌에 불이 붙어서 타면 욕도 불이 붙어서 탄다.

7. 뇌에 불이 붙어 타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 욕에도 불이 붙지 않는 것이다. 근본의 뇌에 불이 붙으면, 욕에도 불이 붙어 주님과 사랑도 불이 탄다.

8. 뇌에 불이 붙고, 골수에까지 불이 붙어야 한다. 뺨속까지 불이 붙어야 한다.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모두 새 역사 성자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

9. 아무것으로나 비유를 들어 말하면 모순이 있다. 앞뒤, 좌우가 온전히 맞는 비유를 써야 된다.

10. 어떤 것 하나만 맞는 비유는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이치에 합당한 비유를 써라.

11. 합당하지 않은 비유는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12. 같은 내용이라면 성자께서 비유를 들어 주신 것을 써라. 전능자의 비유는 모순이 없다.

13. 비유를 잘못 들면 비위가 상한다.

14. 역사적으로 비유를 든 것을 보면,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시대가 달라서 다르다. 구시대에도 새 시대에도 모두 맞는 비유가 있지만, 시대에 따라 전혀 맞지 않는 비유도 있다. 구약은 그같이 했는데, 신약은 그같이 안 한 것은 같은 비유를 들면 안 맞다.

15. 그 시대 그 지도자다. 신광야 시대 때 지도자는 ‘모세’다. 그러나 모세는 늙어서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없었고, 백성들과 같은 운명에 있었다. 백성들은 모세의 육이라면, 모세는 영이었다. 고로 육의 운명은 영의 운명이 되었다. / 가나안 복지 시대는 다른 시대였다. 고로 무조건 그 시대에 살아 있는 자들 중에서 택하여 지도자를 삼는다. 그는 곧 ‘여호수아’였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의 영도자였다. 한 시대 한 인물, 그 시대 그 사람이다.

16. 구약 때 대표적인 인물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이지만, 실제로 구원역사를 편 자는 ‘모세’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구원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셨다. 쫓개지 않으면 모른다. 쫓개지 않으면 선도 악도 한방에 살게 된다.

17. 속을 모를 때는 쫓개라. 그러면 속을 알게 된다.

18. 둘이 한자리에서 말하면 모른다. 쫓개서 각각 말하면 안다.

19. 구약역사는 모세, 신약역사는 나사렛 예수님, 성약역사는 성자가 재림하여 땅에서 택한 자다. 성자는 그를 성약 구원역사의 사명자로 쓰신다. 그 시대 그 인물, 그 주관권 그 사명자다.

20. 안 믿어지면 기도하여라. 그리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라. 역지로 믿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안 믿는 자는 공의의 법에 걸려서 심판자의 심판을 받는다. 안 믿는 자는 구원 밖에서 사는 자다.

21.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모세를 안 믿으니 심판을 받은 것이다.

22. 신약 때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땅의 구원자로 보냈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하고 믿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다. /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과 하늘에서 오신 성자를 믿는 것이었다. 절대 보낸 자, 성자의 육을 믿지 않으면 시대 구원이 없다. / 이 시대도 신약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누구를 또 믿느냐?” 한다. 하늘의 성자가 오셨는데도 안 믿느냐.

23. 성약 때도 성자가 재림하시어 그의 육으로 쓰는 자가 시대 땅의 구원자다. 전능자 성자는 그 육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가 성약시대 사명자다. 성약시대 인물이다. 삼위일체가 그를 통해서 성약 마지막 구원역사를 펴 나가시니,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시대 구원을 받는다.

24.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됐지, 시대 구원을 또 받아야 되느냐?” 한다. 유대 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했다. 그들은 구약급 구원을 받았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손을 대서 구원역사를 펴신 것이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역사를 펴 나가시며 완성하신다. 구원이 완성됐다면, 또 땅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다.

25. 구약역사 기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형벌 기간이며, 종급에 갇혀 있는 4000년 역사다. 고로 하늘에서 성자가 아들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님을 쓰고 1차 아들급 구원역사를 펴 나가셨다.

26. 신약역사 이후 성자가 재림하시어 땅의 사명자를 통해 2차 신부급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랑으로 다시 오시어 신부의 역사를 펴신다. 구약과 신약 때 계속 구

원역사를 펴 오며 가르치고 키운 후에그 터전 위에 땅의 신부를 사랑의 상대로 삼고 하늘과 일체 되게 하는 역사가 성약역사다. 완성의 역사다.

27. 한 여자를 길러서 단계적으로 키우고 가르쳐 신부로 삼는 격이다.

28. 성약역사가 왔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됐지. 누구를 또 믿느냐?” 한다. 이는 마치 “부모를 믿고 형제를 믿고 살면 됐지, 또 누구를 믿고 상대하고 사느냐?” 하는 격이다.

29. 부모만 사랑하며 형제끼리만 사랑하고 클 때는 괜찮다. 다 크면 사랑의 대상체를 찾아 결혼하고, 그 상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애인의 부모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역사가 성약 구원역사 이상세계다.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을 믿으며 형제 입장에서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이 신약 말씀에서 나온다(갈 4:6, 롬 8:15). 다시 오신 성자는 신랑이시다. 우리는 신부다. 신부로 구원받고 성자와 일체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지상의 뜻을 이뤄야 된다.

30. 성약역사는 1000년이다. 기간이다. 성자는 땅에서 처음으로 신부로서 성자를 맞은 자를 자기의 육으로 쓰면서, 성약역사의 중심으로 삼고 그를 통해 1000년 동안 성약역사를 펴 나가신다.

<2012년 8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영계는 자기 육의 생각과 행실로 결정되는 세계다.
2. 힘들게 생각하며 행하는 자는 그 영의 영계 코스도 어려운 코스로 결정되어 간다.
3. 자기 육과 마음이 제대로 하면, 그 영이 영계에서도 날면서 제대로 달린다.
4. 누구나 얼마든지 좋은 영계에 갈 수 있다. 이는 지상에서 자기 육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5. 육신이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하면, 꿈에서도 영계의 코스는 힘든 코스로 가게 된다.
6. 육과 마음이 날면서 하면, 영계에서도 영이 그대로 날면서 한다.
7. 자기의 생활과 생각에 따라서 꿈에서 자기의 모습이 수십 가지로 보인다.
8. 꿈에 육의 세상의 배경이나 기본 형태와 상관없이 보이는 것은 자기 심령 상태나 계시할 것들이 그와 같이 그러함을 보인 것이다.
9. 똑같이 행했어도 마음에 따라서 더 피곤하기도 하다.
10. 정신과 마음은 생각하는 대로 강해진다.
11.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자기가 앞으로 갈 코스를 만든다.
12.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행하면 자기 삶의 코스가 뒤바뀐다.
13. (주 편) 인물이 태어나야 그 환경과 지역이 유명해진다.
14. (주 편) 월명동의 돌, 바위, 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낙타바위도, 장수바위도 그 골짜기에서 사람이 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바위이고, 캐내지도 않고 땅에 처박아 둔 바위다. 사람이 나니, 돌도 바위도 산도 지역도 낫다.

15. (주 편) 월명동 아랫마을인 석막리, 오항리, 삼가리, 부암리는 월명동과 같은 지역이다. 그곳에는 월명동보다 돌과 바위가 훨씬 더 많다. 그래도 그 돌과 바위를 누가 귀히 여기며 구경 다니느냐. 큰 사람이 나아 그 지역의 돌과 바위가 하찮아도 귀히 본다. 산길도 나 성자가 뜻을 위해 나의 육과 함께 다녀서 사연 깊은 곳이 되었다.
16. (주 편) 월명동의 돌과 바위만 구경하지 말고, 거기서 난 하늘의 사람과 접목시켜 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이야기하지도 말고, 구경하지도 말아라. 아무 의미가 없다.
17. (주 편) 나 성자가 나의 육으로 쓰는 선생을 데리고 다니며, 그곳에서 기도하게 했고, 시대 말씀을 주었고, 온 인류를 살리도록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지금 생명들을 구원하고 있다고 하여라. 그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과 나 성자의 말씀을 들어 보라고 전해 주어라.
18. (주 편) 아무리 형상을 가진 돌과 바위라도 그것만 설명하고 끝나는 가이드는 죽은 가이드다.
19. (주 편) 그 돌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늘이 보낸 자를 증거하며 세계적으로 그가 하는 일을 설명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관광지 가이드다.
20. (주 편) 내가 보낸 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면, 성지 땅을 만들어 준 것이 아무 필요 없다.
21. (주 편) 먼저 ‘사람’이 나고, 그가 환경을 만들어 ‘환경’을 나게 한 것이다.
22. (주 편) 대둔산은 월명동보다 돌과 바위도 100배, 1000배 많고, 환경도 만 배나 더 좋다. 그러나 거기서는 ‘사람’이 나지 않았기에 그곳은 관광지로서 사연 없이 눈 구경만 하고 간다.
23. (주 편) 만일 대둔산에서 하나님과 나 성자가 보낸 사람이 나서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면, 그곳도 사연이 빛나서 천국 가는 데 배경으로 쓰여질 것이다.
24. (주 편) 그냥 박서는 아무 도움이 없다.
25. (주 편) 세상 만물만 보지 말고, 꼭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접목시키고 연관시켜 보고 말하여라. 세상의 그 어떤 명산도 아름다운 곳도 그것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를 함께 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 데 큰 영향을 준다.
26. (주 편) 삼위일체는 1000년 동안 성자의 구원역사를 하기 위해 세상의 그 많고 많은, 넓고 넓은 곳 중에서 월명동 좁디좁은 골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다.
27. (주 편) 하늘의 사람이 월명동 골짜기에서 나지 않았으면, 월명동을 오늘날 이같이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돌도 하나도 안 갖다 놓았을 것이다. 나뭇길은 산짐승 길이 되고, 바위와 나무들과 땅들은 모두 잡것들이 되었을 것이다.
28. (주 편) 청중이 구름같이 모여든다고 월명동에 자연성전을 만들었겠느냐. 인간끼리는 만들어도 하나님은 안 만드신다. 성령님도 나 성자도 그러하다. 다른 교회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것인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 드리는 곳을 만들었느냐. 그들에게 정해 주신 법대로 도시에다 교회를 지어서 하게 하셨다.
29. (주 편) 월명동 환경, 돌, 바위, 땅, 약수, 나무, 산, 보이는 모든 것들을 선생의 육과 영같이 설명하고 인식하여라. 자연으로 된 성자의 육이다.
30. (주 편) 월명동은 나 성자의 자연의 몸이다. 내 분체의 몸이기도 하다. 이를 알고 월명동을 나의 분체와 일체 시켜 설명하고, 나 성자와 일체 시켜서 설명하면서 써라.
31. (주 편)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성지 땅을 쓰면, 전능자는 제대로 인식하게 한 후에 쓰게 하신다.

32. (주 편) 자연성전의 사연과 의미를 깨닫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써라. 하나님의 신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33. (주 편) 섭리인들이 자연성전의 사연과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쓰고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자연성전이 모두 구경꾼으로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구경하는 장소로 만들어 준 격이 된다.

34. (주 편) 성전은 주의 몸이다. 성전만 구경하지 말고, 성전이라는 옷 안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몸을 이야기해 주고 구경시켜 주어라. 그 사람은 월명동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한 존재다. 그를 통해 나 성자도,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 시대 구원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러니 월명동 배경에 그를 비하겠느냐. 월명동 자연성전을 통해서 천국의 성약성을 생각하여라. 천국과 월명동은 아예 비교가 안 될 만큼 천국은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세계다. 고로 월명동의 사연을 통해서 그를 증거하여라.

35. (주 편) 나의 분체를 모르면, 성약시대에 나 성자가 온 것도 모른다. 그러니 늘 옛날 골동품만 보고 살듯, 옛 시대 지나간 신약시대만 인식한다.

36. (주 편) 이제 정치권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었다. 어린아이도 늘 소년기가 아니라 청년기가 되었다. 이제 벌써 중년기가 지나고 노년기를 맞았다. 이와 같이 늘 신약역사가 아니다. 시골 마을이 신도시로 바뀐 지 오래됐다. 어린 섭리역사가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청년 역사가 되었다. 하늘의 유업을 받았어도 모르면 미련한 채 그냥 끝난다.

37. (주 편) 성지 땅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38. (주 편) 성지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마음과 정신과 사고와 모든 죄의 더러움을 다 벗어라. 전능자의 전을 관광 지같이 드나들면, 오히려 해가 된다.

39. (주 편) 섭리인들은 이를 확실히 알고 전하며 생명들을 인도하여라. 나 성자가 계시하며 명하였다.

40. (주 편) 우주는 모두 하나님의 성지 땅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41. (주 편) 지구는 하나님의 성산이다.

42. (주 편) 하나님의 성산인 거룩한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되어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청소를 하신다.

43. (주 편) 월명동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난다고, 나는 2000년 전부터 나사렛 예수를 통해 말했고, 세상의 예언가들을 통해 각각으로 예언했다.

44. (주 편) 세상의 예언가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신의 아들이 오면 세계에 평화가 오고, 전쟁이 그치고, 세계 대국도 그를 받아들이며 평화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예언했다. 1000년 전에 세상의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1000년 역사를 위해 택하신 자를 두고, 그때를 기점으로 하여 말하게 한 것이다. 실상 월명동에서 나서 행하고 있으니 그것이 중하다.

45. (주 편) 월명동의 모든 돌과 바위와 땅과 산과 나무와 배경은 나 성자의 분체의 배경과 무대에 불과하다.

<2012년 8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작더라도 목적 있는 삶을 살아라.

2. 커도 목적 없는 삶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지향성도 없고, 마음이 흩어져 사니 얻을 것도 없다.

3. 항상 성자 주님을 앞에 두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4. 항상 성자 주님을 놓고 목적을 구상하여라.
5. 성자 주님을 위한 목적이다.
6. 목적에 가는 데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은 성자의 욕이다. 성자의 욕과 함께 목적인 성자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7. 성자의 욕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 그를 따라서 그와 함께 목적지에 가는 것이다.
8. 머리는 성자 주님이시다. 몸은 자기다.
9. 작든지 크든지 다 목적이 있다. 깨달아라. 성자 주님이 목적이다.
10. 목적은 열매다.
11. 목적을 만나고 깨달아야 얻는다.
12. 목적에 성자 주님이 안 계시면, 열매 없는 나무에 올랐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온 격이다.
13. 성자 주님은 '사랑' 때문에 목적에 함께하셨다.
14. 사람들은 참된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건만, 영원한 참된 사랑이 함께해도 그를 찾지 않고 매달리지도 않는다.
15. 성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시다. 고로 불가능함이 없다. 누구에게든지 사랑의 대상이 다 되어 주신다.
16. 주님은 여자에게는 남자가 되어 주시고,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어 주신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남자가 되게도 하시고, 여자가 되게도 하신다.
17.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신으로 만들어 현실에 그같이 되게 만드신다.
18. 상대성 이론이다. 상대성 실존이다.
19. 목적은 성자다.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향해 가야 기쁨이다. 희망이다.
20. 목적은 상대성이다.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을 향해 가듯이 모든 일을 그같이 해야 된다.
21.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는 삶이다. 고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과 기쁨이다.
22.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상대성 사랑의 목적이어야 하고, 그 목적은 성자 본체의 사랑이어야 한다.
23. 성자 주님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사랑의 상대체 일이 되지 못한다.
24. 사랑은 수백 가지로 행하는 것이다.
25.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다.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것도 사랑이다. 말씀을 듣는 것도 사랑이다. 찬양하는 것도 사랑이다. 말씀을 행하는 것도 사랑이다. 성자 주님과 주고받으며 수수 작용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자 주님과 그의 욕과 하나 되어 성자의 일들을 할 때, 욕이 느끼고 마음과 정신과 영이 느낀다.
26. 행함이 신과 교통이다. 관계다.

27. 대화가 신과 교통이다. 관계다.
28. 깨달음이 신과 교통이다. 관계다.
29. 그로 인하여 얻고, 키우고, 기르고, 빛이 나게 한다.
30. 사랑은 욕이 느끼고, 마음과 정신이 느껴야 된다. 성자의 욕과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해야 욕과 마음과 정신이 깨달아 느끼고, 사랑을 받음으로 기뻐하며 느낀다. 그에 따라 영도 성자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한다.
31. 한 가지만 느끼면 곤고하다. 고로 본체와도 일체 되고 분체와도 일체 되어 사랑도 하고 일도 하면서 행하라는 것이다.
32. 욕인 본체와만 일체 되어 사랑하고 행하면 영적 곤고가 오고, 영인 본체와만 일체 되어 사랑하고 행하면 욕적 곤고가 온다.
33. 욕을 가지고 사랑으로 욕적 일을 해결하고, 영을 가지고 사랑으로 영적 일을 해결한다.
34. 영과 욕 모두 사랑을 받아야 영과 욕이 다 만족하고 목적을 이룬다.
35. 본체와 분체는 흙과 물과 같다. 고로 둘 다 받아야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꽃도 심으며 영욕이 이상세계를 이뤄 간다.
36. 사랑을 이성에게만 쓰면 이성에서 끝나고, 사랑을 성자와 그 분체를 사랑하는 데 쓰면서 영원한 사랑으로 쓰면 욕이 땅에서도 이상세계를 이루고 영이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며 산다.
37. 사랑은 사랑으로 얻는 것이다.
38. 사랑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
39. 사랑의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40. 똑같은 돈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먹는 데 쓰면 순간 맛있는 기쁨으로 끝나고, 물건을 사는 데 쓰면 그 물건을 다 쓸 때까지 기쁨을 누리고, 사람을 사귀는 데 쓰면 그에 해당되는 것을 얻으며 기쁨을 누린다. 사랑도 그와 같다. 너희 사랑의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느냐. 그에 따라 욕과 영의 결과가 달라진다.

<2012년 8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1차원적 사랑이다.
2.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2차원적 사랑이다.
3. 남자와 여자가 자기 집안의 혈통을 떠나 다른 혈통과 사랑하는 것은 3차원적 사랑이다.
4. 서로 본질이 다른 ‘하늘의 영체인 신과 인간의 육체와의 사랑’은 4차원적 사랑이다. 이는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다. 곧 영과 욕의 사랑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도 전능하신 영체로서 욕신을 가진 상대체를 사랑하니 4차원적 사랑이다. 그 사랑은 영적으로 느껴지기에 욕끼리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렬하게 느껴진다.
5. 5차원적 사랑이 있다. ‘하늘의 영체인 신과 욕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과의 사랑’이다. 욕신을 통해 만들어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과 사랑하면, 육보다 영이 사랑을 수천 배 더 강하게 느끼니, 사랑의 보람과 기쁨을 더 엄청나게 느낀다. / 하나님이 보실 때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과의 사랑과,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태어난 천사와의 사랑의 느낌은 전혀 다르다.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과의 사랑은 마치 상대적 사랑의 대상체인 애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고,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태어난 천사와의 사랑은 마치 자기 자녀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 형제는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도 생각도 형제로만 느껴진다. 그러나 상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자는 쳐다보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사랑하는 세계가 전혀 달라진다. / 이와 같이 육신을 통해 만든 영은 신의 상대적 사랑의 존재라서 신이 대할 때 생각만 해도 느낌이 다르고, 접하면 사랑에 만족하게 된다. 상대체 사랑을 해야 만족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육신을 통해 영을 창조하셨다. /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기에 인간의 영과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차원이 높고 높다. / 육을 통해 만들어진 인간의 영은 사랑의 방법도 다양하고, 그 사랑이 태양같이 뜨겁고 예민하다. 고로 능히 전능자의 사랑의 상대체가 된다. (인봉을 떼다. 천사는 사랑 면에서 생각이 낮고, 형제적 사랑밖에 모른다.)

6. 과일도 돌감나무에서 연 감보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서 연 감이 100배나 맛있다. 크기도 크고, 보기에도 좋고, 각종 영양 성분이 높다. / 물소고기는 질기고 맛이 없다. 그러나 육우와 접붙여 육우로 낳은 소는 맛있다. / 이와 같이 아예 하늘에서 영으로 창조된 영과의 사랑보다, 육신을 통해서 창조된 영과의 사랑의 차원이 더 높다. 육신을 통해서 창조된 영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에 만족하며 살게 된다.

7.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졌으면, 사랑해도 사랑의 상대로부터 오는 느낌을 수백 가지로 느끼지 못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지체와 구조가 다르기에 더욱 더 사랑을 느끼게 된다. / 이와 같이 육신을 통해 창조된 영은 사랑의 주체인 하나님과 구조상으로도, 존재상으로도, 차원상으로도 다르다. 고로 상대적 존재로서 천상배필이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 육을 통해 창조된 인간의 영은 마치 남자 앞에 여자 지체와 구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양과 형상이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8. 육신을 통해 인간의 영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9. 반지와 반지는 ‘상대적인 짝’이 아니다.

10. 동성연애자는 반지와 반지끼리 상대적 짝이라고 하며 사는 것과 같다. 이는 비원리적 사랑이다. 서로 짝이 아니다. 둘은 같은 질이라서 상대적 짝이 되지 못한다.

11. 시계와 반지는 구조가 달라서 한 짝이 된다. 시계와 반지는 한 쌍이고 한 커플이다. 이는 남자와 여자 같다.

12. 전능하신 신과 인간은 상대적이라서 시계와 반지처럼 한 쌍이며 심정일체 한 짝이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며 인간은 육이라서 한 쌍이다. 둘째, 하나님은 영이며 인간의 영은 육에서 창조된 영이라서 한 쌍이며 상대적 짝이 된다.

13. 나무와 과일은 구조가 다르지만 같은 액이 통하니 상대적 짝이다.

14. 성자의 본체를 자기 머리로 삼고 살아라.

15. 본체와 일체 되는 것이 본체와 일체 되는 것보다 쉽고, 본체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되는 것이 본체와 일체 되는 것보다 쉽다. 본체와 일체 되면 본체와 일체 된 자이며, 본체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되면 본체와 일체 된 자다.

16. 성자 본체와 직접 하나 되기보다 그 본체와 하나 되기가 더 쉽다. 성자 본체를 통해서 성자 본체와 일체 된다. / 땅의 사명자의 육의 본체와 하나 되려면 어렵다. 그 사명자의 본체와 하나 되어야 지상의 본체와 하나 되기가 쉽다.

17. 본체는 항상 높다. 그러니 항상 보낸 자, 곧 본체와 일체 되어라. 그를 통해 본체와 하나 되기 쉽다. 보다 아벨을 통해 연결되어야 쉽다.

<2012년 8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성자의 계시 잠언

1.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하지만, 개인·가정·민족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고, 또 학교·회사 등 자기 삶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간다.
2.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3. 사람을 만나면 그 정신과 사고를 받게 된다. 그러다가 그 정신과 사고가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자리를 잡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부터 그 정신과 사고가 자기를 지배하게 된다. / 고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되니,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4. 돈에 목적을 두고 출세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들도 있다. 무엇이 출세이며 성공인지 모르고 산다.
5. 잘못된 자들은 구원길을 빙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영혼을 망하게 한다.
6. ‘종교’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 것과 같다. 고로 우상 종교든, 잘못된 종교든 한 번 접하면 거기서 나오기 힘들다.
7. 인생은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다. 그 길을 찾아야 된다. 시대마다 하늘은 참된 구원자를 보냈다.
8. 육적인 자 만나면 영원히 육으로 끝난다.
9.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
10. 인간은 반드시 세상에서 살 때 창조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길을 간다. 그 길을 열어 준 자가 그 시대 구원자다.
11. 전능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12.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13. 이 시대에 나 성자가 보낸 한 인간을 찾아라. 그를 꼭 만나야 한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찾듯이, 이 시대 그러한 곳에서 나 성자가 보낸 한 인간을 찾아라.
14. 구세주인 나 성자를 만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곧 인생길이며 생명이다. 사망은 사망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나는 전능한 신이다. 고로 나는 육을 쓰고 왔다. 그러니 내가 육으로 쓰는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해서 나 성자를 찾아라. 먼저 아는 자가 너희를 나에게 이끌며 중매할 것이다.
15. 성자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 주어라. 그러려면 내가 나의 육을 통해서 한 말을 전해 주어라.
16.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자가 누구냐. 나 성자가 쓰는 땅의 사명자다. 내가 사명을 줬다는 것은 나 성자가 그 사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17. 전능자 하나님과 나 성자가 원할 때가 최고의 기회다.
18. 육을 통해 신의 소리가 들려온다. 호소의 소리다.

19. 하늘은 하늘의 한을 풀어 주는 자와 함께 즐긴다.
20. 깨닫는 만큼 나 성자와 동행한다.
21. 이 시대는 성자 본체를 알고, 그의 본체를 알면 끝난다.
22.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고 창조하셨고, 또한 하늘의 말을 들으면 그 양심이 그 말을 듣고 따를 수 있게 창조하셨다.
23. 전능자 신을 인간에게 보여 주면, 인간은 두렵고 떨려 늘 옆드려 경배하며 산다. 그러면 인간이 제정신을 가지고 못 산다. 너무 두렵고 떨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24. 전능자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못 하면,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25. 인간을 순리적으로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신다.
26. 나 성자도 본체만 안 보일 뿐이지, 너희가 나를 못 보는 대신 각종으로 더 자세히 돕고 동행한다.
27. 나 성자는 꿈으로, 만물로, 양심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쓰고 나타난다.
28. 나 성자는 전능하신 신으로서 인간을 쓰고 나타나서 구원한다. 그러니 욕을 보고 실족하지 말아라.
29. 나 성자의 욕, 곧 나의 본체는 절대 예정으로 택하기도 하지만,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기고 연단을 받으며 나의 몸이 되어 준 자가 나의 욕이며 나의 본체다.
30. 창조주 삼위일체는 상대적 사랑을 받기 위해 천국의 상대 세계인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의 욕과 영을 창조하셨다. 고로 그 목적을 이뤄 주는 자가 있으면, 삼위일체는 그를 사랑의 상대체로 삼는다. 그는 세상을 다 버리고 오직 나 성자만 사랑했다. 그런 자를 나의 몸으로 삼고 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아라.
31. 나 성자의 본체는 나를 사랑하듯 인류를 나같이 사랑해야 된다.
32. 욕을 가진 자는 욕을 가진 자를 핍박한다.
33. TV 화면을 통해 그 나라의 주권자가 나타나듯이, 나 성자도 나의 몸으로 쓰는 욕을 통해 나타난다.
34. 60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역사를 진행해 오다가 인간의 욕과 영이 최고로 완성되는 때는 ‘재림역사, 곧 성약역사’ 때다. 이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그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그때는 나 성자의 영광의 얼굴을 본다. 욕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욕의 행위를 통해 완성된 휴거의 영이 나의 얼굴을 본다.

<2012년 8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나 성자에 대해 인식하는 만큼 내가 역사한다.
2. 인식관이 온전해야 구시대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독립하게 된다.
3. 성약역사에 대해 인식해야 독립한다.
4. 과거에 신약의 주를 사랑하고 믿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대 성자 본체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독립을 한다.

5. 습관 된 대로 체질화된 대로 행하지 말아라.
6. 말로만 하고 진실로 행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7. 영과 정신이 살아야 진실로 행한다.
8. 인류 최대의 희망은 '주의 재림'이다.
9. 성자 분체는 인류의 모든 자 앞에 먼저 '부활의 영'으로 나타난다.
10. 과거에 해 오던 대로 계속하니,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열정과 열심이 식어 간다.
11. 세상에서 타향살이를 하던 너희 영들을 본향인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이것이 '영 휴거'다.
12. 지금 이때는 마치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과 같다. 끝까지 문 열듯 하면 된다. 포기하지 말아라.
13. '변질'은 '생각'에서 시작된다.
14. 변질되면 회복하지 못한다.
15. 생각은 생각으로 다스려라.
16. 인생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조금 더 길게 살고, 조금 더 짧게 살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인생은 정해진 100년을 살기 때문이다. 시한부 인생에게 줄 특효약을 발견한 자가 있으니 나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자다. 그는 자신을 평생 희생하고 바쳐 가면서 나 성자가 개발한 '구원의 약'을 밝혀냈다. 이를 밝히기 위해 각종 시험을 다 해 보고, 각종 환난을 다 이기고, 이것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 구원의 약을 받아먹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17. 인생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차피 다 죽는다. 고로 자기 영을 구원하여라.
18.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생명이 연장된다.
19. 영을 건강하게 가꾸어라. 생명이 연속되어 영원한 삶이 된다.
20. 신은 그 영체가 온전하다. 고로 육체 없이도 온전히 행한다.
21. 육신은 온전히 행할 수 없다. 고로 육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 자는 묶이지 않기때문에, 나 성자는 그러한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을 찾는다.
22. 영과 육을 온전히 만든 나의 분체를 따라서 너희 육도 영도 온전히 만들어라.
23.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 단지 길고 짧을 뿐이다.
24. 영체로 행하면 신의 행위를 하게 된다.
25. 나 성자와 일체 되어 너희 영을 나의 분체와 같이 만들어라.
26.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운전 실력이 없으면 못 달린다. 좋은 차와 좋은 실력이다.

27. 너희 영이 신령한 영체가 되려면, 너희 육체를 가지고 영체를 온전히 만들어라.
28. ‘말’로 하다가 말로 못 하게 되면, ‘펜’으로 하면 된다.
29. 진리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받아 1차 육적 부활을 하고, 2차 영적 부활을 하여 영이 하늘로 휴거되게 된다.
30. 섭리인은 누구든지 성자 본체와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다.
31. 성경의 14만 4천 무리는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들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의미한 것이다.
32. 온전한 영으로 휴거되는 영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14만 4천 무리다.
33. 천사장이 나팔 불 때 나 성자 본체가 재림한 후에는 세상에 환난이 크다. 그러면서 섭리역사는 펴 나간다.
34. 환난 전에 추수된 영, 곧 휴거의 영이 되어야 한다.

<2012년 8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금세 주위에 사탄 마귀가 가서 흑암 세계가 가득하게 된다. 그러나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하면, 금세 천사들이 가서 돕고 빛의 세계가 가득하게 된다.
2. 생각의 파장에 맞춰서 영계의 세력이 너의 곁을 채운다.
3.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다.
4. 생각을 항상 검토하고 온전하게 하여라.
5. 체질화 돼야 생각한 것을 쉽게 행한다. 체질화될 때까지 행하라.
6. 나의 분체는 체질화 했기에 정신을 잡고 행한다.
7. 보낸 자의 바탕 위에서 믿고 행하는 것과 자기 자체로 믿고 행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
8. 보낸 자를 절대 믿고 행하는 것이 스스로 혼자 행하는 것보다 낫다.
9.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야, 그 의로 사망 주관권을 넘어와서 구원의 세계로 온다.
10. 시대에 보낸 자는 오직 나의 분체 한 명뿐이다. 나 성자는 그를 통해서만 재림 역사와 신부 역사를 한다.
11. 기독교는 이 시대 내가 보낸 자를 맞지 못함으로 마치 신약시대가 왔을 때 예수를 맞지 못했던 구약인들 같은 처지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 역사를 맞아야 된다.
12. 성경은 축소하여 축약하여 기록했다.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여 남긴 것이다.
13. ‘아담’은 무너진 자의 표상이고, ‘나 성자의 분체’는 살아 있는 자의 표상이다.
14. 요셉 때 보디발의 아내는 의인 요셉의 옷을 벗겨서 거짓의 증표로 삼으며 억울하게 했다. 이 시대도 오히려 죄인들이 의인의 옷을 벗겨 가서 거짓의 증표로 삼고 억울하게 하니, 믿지 말고 행하여라.

15. 악인들은 항상 의인의 행위를 흡잡고 죄로만 본다.

16. 믿고 확실히 와라. 타락하고 배신하고 불신하면 기회가 없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나 성자를 알고도 불신하는 것이다. 나의 분체는 나 성자나 다름없다.

17. 쪼개서 봐야 근본을 안다. 영과 육을 쪼개고, 영 휴거와 육 휴거를 쪼개서 봐야 믿어지고 혼돈되지 않는다. 구약, 신약, 성약을 쪼개고, 선영계, 낙원, 천국을 쪼개서 봐야 된다. 또한 나 성자 본체와 나사렛 예수를 쪼개서 보고, 신약 때 나의 분체인 나사렛 예수와 성약 때 나의 분체를 쪼개서 봐야 된다. 자녀시대와 신부시대를 쪼개서 보고, 악인과 선인을 쪼개서 대해야 된다. 수백 가지를 쪼개서 보아라.

18. 쪼개지 않고는 모른다.

19. 창조주 하나님은 상대성 세계로 창조하시고 쪼개서 섭리해 가신다.

20. 지능이 낮으면 쪼개지 않고 하나로 본다.

21.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쪼개지 않고 보면 그냥 똑같이 보게 된다.

22. 죄인과 의인을 쪼개지 않고 보면 똑같이 보게 된다.

23.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제물을 쪼개서 받으셨다. 신약 때도 양 같은 자들과 염소 같은 자들을 쪼개서 대하셨다.

24. 계시받은 자는 한 번만 전하고 말지 말고, 성자의 계시를 평생 계속 골고루 전해 주어라. 성자의 계시는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 고로 받은 자가 다니면서 계속 전해 주어라.

<2012년 8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상을 찾아야 된다. 나 성자는 너희의 대상이다. 나에게 다 있다. 나를 찾아라.

2. 전능자 삼위일체 신만이 구원의 길을 알려 주고 구원의 문을 열어 준다. 삼위의 육인 사명자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고, 그를 통해 말씀하여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

3. 신약 때 나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3년 동안 신약 복음을 선포했다. 신약 2000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며 신약 역사를 펴 나갔다. 나 성자는 예수의 육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다.

4. 사람들이 이 시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전해야 한다. 그래야 후대의 사람들이 듣고 풀고 행한다.

5. 신약 때는 3년 동안 전한 복음으로 2000년 동안 신약 역사를 펴 나갔다. 성약 때는 33년 동안 전한 복음으로 1000년 동안 성약 역사를 펴 나가게 된다. 고로 신약보다 더 유리하다.

6. 성약 때는 나 성자가 나의 육을 쓰고 33년 동안 많은 것을 해 놓아서 사람들이 그만큼 믿고 따르기 쉽다.

7. 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분체를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따라라. 성장하면 곧 이해된다.

8. 세상 모든 자들도 어렸을 때는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크면서 다 이해하게 된다.

9. 발달된 자는 항상 앞에 간다.

10. 구약은 초급이고, 신약은 중급이고, 성약은 고급, 즉 완성급이다. 성장함에 따라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11. 역사를 볼 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고, 신약 때는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과 나 성자를 자녀 입장에서 사랑하라 하셨다. 성약 때는 신부를 보내서 하나님과 나 성자를 신랑같이 모시고 사랑하라 하셨다.

12. 그 시대는 그 시대 말씀의 인식 때문에 더 이상 차원을 넘지 못한다. 고로 새 시대에는 다른 자를 보내어 하늘이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인식을 넣어 주고 다른 차원으로 새 역사를 한다. 구약 - 신약 - 성약역사인데, 각각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구원받아 영들이 가는 영계의 차원도 다르다.

13. ‘종’은 종으로 살아 온 인식 때문에 아들 인식을 못 하여 아들같이 살지 못한다. ‘아들’은 아들로 살아 온 법이 있고 인식이 있어서 아들의 인식을 벗어나 애인같이 살지 못한다. 고로 신부 세계는 신부로 인식하고 신부의 삶을 살아 온 자를 세워 마지막으로 나 성자를 신랑으로 맞아 그 시대 휴거 역사를 펴 나가게 한다.

14. 옛집 허물고 새집을 짓듯이, 신앙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15. 동으로 뜬 동상을 녹여서 다시 자기 형상을 뜨듯이 새롭게 새 역사를 해야 된다.

16. 항상 새 역사가 오면 구 역사에 있는 자들을 부른다. 마치 왕이 왕후 와스디를 부르듯 부른다. 그러나 안 오니, 새롭게 에스더를 다시 왕후로 뽑는 것이다.

17. 새 역사가 오면 기성시대에 있는 자들이 오도록 충분히 기회를 준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새 역사로 오지 않고 기성시대에서 새 역사를 이루려 한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다. 기성시대에서 새 역사를 이루면, 그 주관권에서 차원만 높일 뿐이다.

18. 한 태에서 난 자라도 후에 노력과 수고의 차이로 운명이 갈려 간다.

19. 인생 ‘성공 길’, ‘실패 길’ 두 길이다. 출발점에서 갈려 간다.

20. 신만이 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신이 그 시대에 가르쳐서 보낸 한 명 만이 신이 원하는 것을 안다. 고로 그를 따라 가야 된다.

<2012년 8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으로 나와 통하는 자는 마치 ‘전화’로 자기 애인과 통하는 자와 같다.

2. 타국에 멀리 유학 가려 하고, 자기 자녀를 유학 보내려고는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월명동은 오지 않고, 월명동에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 잘못 보고 잘못 성장하면 평생 잘못되게 간다.

3. 특권 의식을 버려라. 다 성자가 쓰니, 자신의 힘도 능력도 아님을 알아라.

4. ‘순결과 정결’을 특권으로 삼고 자기를 만들어라.

5. 중심이 주관이다. 중심은 나 성자다. 나의 분체를 보고, 그가 전하는 나의 말을 듣고 중심을 잡아라.

6. 급수는 어느 시대로 왔는지 시대 급수로만 따지면 안 된다. ‘의’로도 급수를 따진다.

7.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영으로 태어난 존재로 삼위일체와 동질 요소로 태어났다. 고로 삼위일체 앞에 자녀 입장과

같다. ‘인간’은 하늘나라의 상대 세계인 지구에서 육을 통해 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삼위일체의 상대체로 태어났다. 고로 하나님의 근본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대상이다. 그러나 인간이 창조 목적을 못 이루면, 그 급이 천사보다 못 하다.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된다. * 다음 잠언을 듣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20장 35~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눅 20:35-36)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8. 육이 땅에서 <1차 휴거>를 온전히 이루면, 천사와 급이 동등하다(눅 20:35~36). (계 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9. 땅에서 육으로 <1차 휴거>를 이룬 자는 자기 영을 하늘로 휴거시키는 <2차 휴거>를 이룰 자다. 2차 휴거되어야 비로소 천사보다 급이 더 높아진다. 2차 영적 휴거를 이루고 나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나 성자와 나의 분체와 일체 되어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이다.

10. 성자 분체와 일체 된 자만 1차 육적 부활을 이룬 자다.

11. 과거 실수에 얽매어 있으면, 거기에 빠져 현재에 주는 축복도 못 받는다. 지금 하면 된다.

12. 과거, 현재, 미래에 마음을 비워라. 현재에 복직해야 된다.

13. 현재에 한 발자국씩 잘 디디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

14. 마지막 구원 역사를 결론짓는 자는 나 성자의 분체다. 그는 너희를 구하는 자다. 6000년 성경 역사를 보아라. 어느 시대에 이 같은 말씀을 산같이 전해 주었느냐.

15. 마지막으로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성약역사다.

16. 중심자는 내게 배우고 왔기에, 배우고자 열망하는 자와만 통하고 그에게만 가르쳐 준다.

17. 섭리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자는 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 영이 다른 영계로 흘러간다.

18. 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자꾸 깨달으려고 해야, 나 성자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하여 더 온전히 변화시킨다.

19. <세상 지식>은 육이 죽으면 끝나지만 <영의 지식>은 영원히 가니, 땅에서 쉬지 말고 영의 것을 배워라. 그러면 네 영이 알고 모두 흡수하고 실천하여 빛난다.

20. 세상에서 명예, 재물, 사는 위치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처하게 하신다.

21. 나 성자의 마음을 녹이는 자에게 나 성자의 마음을 준다.

22. 나 성자가 허락하고 함께하는 찬양과 예술이 영적 찬양이며 영적 예술이다.

23. 나 성자의 마음과 하나 되어 찬양하고 예술을 할 때,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도 감동을 받아 나의 뜻을 이룬다.

24. 말씀을 외치는 것도 하나의 생명의 노래다.

25. 끝까지 따르는 자만 정복의 땅을 볼 수 있다.

26. 너희 선생이 사명을 받고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여 내가 사명을 준 것이다.

27. 베드로는 근심과 걱정을 통해 예수에게 왔다.

28. 천국과 지옥은 공의의 결과 세계다.

<2012년 8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사람들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함이다.

2.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보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충성으로 하는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선한 마음으로 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전능자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진정의 마음으로 하는지 보신다. 이를 두고 '중심을 본다' 한 것이다.

3.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모든 것도 정말 하고자 하여 하는지 '중심'을 보신다.

4. 중심이 어디로 쏠렸는지 보신다.

5. 사람은 중심이 쏠린 대로 된다.

6. 그릇의 물은 그릇이 쏠린 쪽으로 간다.

7. 사람은 마음으로 죽고 마음으로 산다.

8. 마음이 가는 대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

9. 마음의 중심대로 힘을 받는다.

10. 어떤 무거운 바위도 중심에 의해 전체가 힘을 받듯이, 사람도 마음의 중심에 의해 자기 인생 전체가 쏠린다.

11. 사랑에 빠져 있는 자는 모든 행위를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

12. 기도에 중심이 있는 자는 모든 행위가 기도로 쏠린다.

13. 중심대로 자신이 무섭게 가게 된다.

14. 자기 중심에 성자가 동행하고 그 분체인 구원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욕적으로 한 것이다.

15. 자기의 중심을 성자로 두고, 성자와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16. 월명동 성자바위는 130톤이다. 그 큰 바위도 중심만 전체 무게인 130톤의 힘을 받는다. 중심을 벗어난 다른 곳은 계란을 놔도 안 깨진다.

17. 시대 중심자에게 그 시대 하늘의 힘이 다 간다. 시대 중심자에게 말씀이 가고, 운명권이 가고, 구원이 가고,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이 가고, 뜻이 간다.

18.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도 그 시대 중심자에게 온전히 갈 때 그 힘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

자가 주시는 구원과 구원의 힘을 받는다.

19. 하나님과 성자의 역사는 그 시대 중심자에게 모든 것이 다 쏠려 있다.

20.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듯, 그 시대에 보낸 중심자를 보고 행하시니, 모두 거기에 쏠려 해야 된다.

21. 중심을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로 본다.

22. 중심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100% 받는다.

23. 사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100% 받는다.

24. 중심자는 중심을 보고 뽑는다.

25. 하나님은 중심을 '사랑'에 두셨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자를 자기 삶보다,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진정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의 힘을 최고로 받는다.

26.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중심지에 존재시켜 존재하게 한다.

27. 중심지에는 전체의 힘이 있다.

28.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

29. 누구든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다.

30. 눈가림도 소용없다. 중심에서 1mm라도 벗어나면, 그로 인해 스스로 넘어가기에 존재하지 못한다.

31. 시대 중심자만이 생명의 길이요, 중심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다.

32. 중심에서 하는 것만 하늘에 상달된다.

33. 성자는 중심에 계시고 중심에 역사하신다.

34. 중심을 벗어나면 사망권이다.

35. 양심은 중심이다. 고로 양심을 벗어나면 스스로 넘어진다.

36.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행위를 중심하여 심판하신다.

37. 중심에서 행하는 것만 영원히 존재한다.

38. 거짓, 음모, 잔꾀를 부리며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난 자는 사망 주관권에 속하게 된다.

39.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만 열매를 따듯 거두시고, 나머지는 나무를 가꾸듯 생각하신다. 나무가 열매를 열 때 인정받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단계까지 가야 인정하신다.

<2012년 8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중심만이 하나님과 성자와 통한다.
2. 성자가 중심이다. 일체 되어라.
3. 인간의 중심은 마음이다. 생각이다. 영이다.
4. 너의 중심은 무엇이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된다. 하늘 앞에 중심은 '사랑'이다.
5. 마음의 중심이 돌아가면 일순간 무너진다.
6. 중심에 있으면 환난의 눈보라가 쳐도 그곳은 피난처다.
7. 오직 성자 중심이다. 마음과 생각이 중심에 서서 가야 휴거의 영이 된다.
8. 중심을 지키면 변함이 없다.
9. 사탄은 중심을 벗어나게 한다.
10. 중심자는 그 시대 반석이다. 그 위에 중심을 세워야 된다.
11. 중심을 잃으면 넘어가듯이, 중심자를 잃으면 넘어간다.
12. 중심자를 배척하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의 눈에 거슬려서 다 멸하신다.
13. 사탄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인 중심을 벗어나서 스스로 세운 세계다. 고로 하나님은 불바다로, 각종 고통으로 멸하셨다. 고로 사탄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14. 뜻이 없을 때는 하나님도 주도 돕지 않으신다. 스스로 멸망받게 하신다.
15. 화분도 주인이 뜻이 없어서 물을 안 주면 스스로 죽는다.
16. 세워 놓은 돌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 영원히 스스로 못 서듯이, 한 번 중심을 잃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넘어지면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온다.
17. 하나님과 성자를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영을 아예 없애 버리지 않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게 해서 고통 받게 하는 뜻이 있다. 그 비밀이 있다.
18. 천국에 간 영만 모든 것을 온전히 안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곳은 두 곳이다. 한 곳은 육신이 받고 사는 육의 세계이며, 다른 한 곳은 영이 받고 사는 영의 세계다.
20. 이 세상의 메시아든 중심자든 하나님이 최고로 함께하시면서 그 육으로 썼던 자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격이 되지 못한다. 삼위일체의 분신, 즉 분체는 된다.
21. 사람을 삼위일체로 믿으면 실망한다.
22. 삼위일체는 전능자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이시요, 인간을 지으신 존재이시다.

23.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해서 모세가 창조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 주시면서 모세가 가
른 것같이 하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믿으라고 한 것이다.
24.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행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몸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다.
25. 근본의 중심을 삼위일체에게 두어라.
26.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세운 자, 보낸 자를 쓰고 다 행하신다.
27. 중심자를 붙잡고 행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28. 넘어졌어도 다시 세우려면 중심을 놓고 세우면 된다.
29.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줘야 영원히 같이 존재한다.
30.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중심적 사랑이면 안 된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대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도 좋아
서 그를 영원히 존재시키신다.
32.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그 사람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신다.” 한다. 아니다. 하나님
은 그동안 그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
33. 사도 바울을 보고 말하기를 “그동안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심하면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다.” 한다.
아니다. 그는 그 전에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셨다.
34. 섭리사에서도 하나님은 그동안 섭리사에 오기 전부터의 행위를 다 보시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섭리사에서 일한
것을 다 보고 쓰신다.
35. 자기 공적은 자기 것이다. 자기가 공적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에게 100% 다 주시고, 나름대로 다 갚아 주신다. 낙
심하지 말아라.
36. 자기가 행한 것은 자기가 다 받는다.

<2012년 8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재능 소질 없어도 습관 되면 자기 특기 된다.
2. 지금은 이성(理性) 시대를 넘어 감성 시대다. 정신 시대다. 마음 시대다. 영의 시대다.
3. 차원 높은 말은 반응은 적다. 모두 보통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4. 마음이 빛나가면 빛나간 화살 같다. 확인하나 마나다.
5. 감정으로 싸우면 전쟁이 아니다.
6. 불의와 싸우는 평화적 전쟁이다.
7. 대화는 관계다. 땅과 땅의 대화, 하늘과 대화다. 상대가 대답 없어도 말하면 듣고 생각 달리 한다.

8. 남녀의 이성의 사랑만 흥분되고 뇌와 말초신경이 자극되어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것은 아니다. 대화도 화평 대화, 희망 대화, 문제가 풀리는 대화, 꿈을 이루는 대화는 엔도르핀을 분비시킨다. 자기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혀가 신경 자극을 극적으로 느껴 뇌에서 호르몬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흥분하게 하며 오래 행복을 준다.
9. 신과 사랑하여 영적 쾌감을 느끼고 영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누리든지, 혹은 마음 정신 생각이 기쁨을 유발하여도 뇌에서 호르몬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그 기쁨을 극적으로 오래 느낀다.
10. 남녀 성적 사랑만 뇌를 자극하여 흥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오래가고, 정신 마음 생각들이 오래간다. 육적인 것은 가장 일순간이다. 자극할 때만 느끼는 둔감한 육체다. 정신 영 마음은 생각만 해도 뇌가 자극되고 신경호르몬과 엔도르핀이 발생한다. 기도 깊이 하여도 그러하다. 의의 영계에 들어가면 선의 흥분의 세계다.
11. 글을 써도, 또 자기 기쁨의 일을 해도, 또 자기 아는 것을 뽑아내어 가르쳐 줘도 뇌의 엔도르핀은 솟아난다.
12. 영 살리려면 먼저 육 살려라.
13. 영이 구원받으려면 육이 구원받아야 된다.
14. 육 변화 영 변화다.
15. 인간의 삶의 목적은 창조 목적이다.
16. 오직 전능자 사랑, 성자 사랑 하나 되어 사는 삶이다.
17. 만물이 있어도 어디 쓸지 모르면 못 쓴다. 인간도 어디에다 어떻게 쓸지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하나님 창조 목적에 써라.
18. 하나님 성자 성령 목숨 다해 사랑하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며 살듯 하여라. 육이 죽어도 영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19. 육적 인간끼리의 창조 목적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 안에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다.
20. 하나님 성자 성령과 그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창조 목적이다.
21. 육적인 자는 육적 창조 목적만 시키는 것을 목적했다. 전 역사가 그리했다. 육에서 끝난다.
22. 결혼했어도 영원한 창조 목적인 성자 재림 맞고 일체 되어 신부 되어 살아야 영원한 본연의 세상 창조 목적과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룬다.
23. 전능자 성자를 온전한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자는 세상 그 어떤 자보다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자다.
24. 절대적 사랑은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고 영혼까지 구원한 존재자를 사랑할 때 일어난다.
25. 육체적 남녀의 사랑은 육체적이어서 땅바닥을 면하지 못하는 사랑이다.
26. 창조주와 성자 성령님은 사랑체다. 고로 만든 것이 모두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사랑할 때 만물에서도 그 사랑을 얻게 된다.
27. 영혼은 진리가 없으면 죽는다.

28. 진리는 빛이다. 빛 없으면 식물도 인생도 죽는다. 영도 진리 없으면 죽는다.

29. 성자 주님께 마음 주고 다 맡겨야 그 조건으로 마음 잘 간수하고 환난 중에도 해를 안 받는다.

30. 인간이 좋아서 성자에게 해야 된다.

31. 달라고 하고 원해서 줄 때, 산 믿음도 되고 모든 것에 사탄도 침범을 못 한다.

<2012년 8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그 시대 보낸 자가 누구인지 100% 알고 믿어야 그 시대의 구원을 받는다.

2. 나사렛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다. 모두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베드로만 알았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주셨고, 베드로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다. (마 16:15-20)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3. 이 시대도 보낸 자를 100% 알아야 말씀도 100% 믿게 되고, 성자가 계시해 주시는 것도 100% 믿고 행하게 된다.

4. 보낸 자를 믿는 만큼 그 영의 영계의 위치가 결정된다.

5. 영계에 갔을 때 어떤 영이 그 위치에 없어서 다른 곳에 가 보니, 그 밑의 위치에 있었다. 육계에서 사람들이 보는 인식과는 달랐다.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지식으로만 시대를 알았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6.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말의 고백만으로는 100% 사랑이 안 된다. 몸의 고백, 즉 몸으로 사랑해야 100%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자 앞에도 말과 행실을 다 하는 전부 사랑이 아니고 최우선의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은 하늘 앞에 상달도 안 되고 인정도 안 하신다.

7. 강을 보고 물이 흐르는지 바닥이 말랐는지 알듯이, 나무를 보고 소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알듯이, 사랑의 주인과 그 사명자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가 100% 사랑하고 사명을 알고 따르는지 아닌지 안다.

8. 대하는 것을 보고 안다.

9. 사명자가 말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는 자는 자신이 자동적으로 알고 대한다.

10.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은 성자의 말씀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고로 말씀을 부인하면 사함을 못 받는다. 죄를 고해도 사함이 없다.

11. 100% 믿어 주지 못한 것이 사명자를 부인한 것이다.

12. 사명자를 100% 믿어 주고 살아야 복직된다.

13. 남자를 보고도 100% 남자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마음이 약한 자냐.

14. 100% 여자가 맞는데 믿음이 없으니, 100% 여자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 사명자도 100% 맞는데 믿음이 없으니, 100% 믿지 못하고 산다. 얼마나 믿음의 복이 없는 자냐.
15. 사명자는 100% 사명자다. 90% 되는 사명자는 없다.
16. 나사렛 예수가 90% 메시아냐. 어리석은 자들아. 그 어리석은 믿음으로 너희가 너희를 스스로 망하게 하는구나. 어서 100% 믿고 회개하여라.
17. 아는 자들이 증거하여라. 축복을 받으리라.
18. 월명동 바위들과 나무들에 얹힌 사연을 증거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 사연을 증거하면 모두 놀란다.
19. 이 시대 사명자도 증거해야 한다. 사연 증거다. 알고 증거하는 만큼 자기 자신이 굳건해지고 그 욕도 영도 차원 높여 변화된다.
20. 성자를 알고 증거하여라. 신약 때는 증거가 약해서 복음이 빨리 퍼지지 못했다.
21. 증거하면 바로 민족과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간다.
22. 세상의 악한 자들이 섭리사와 사명자를 악평했으니, 그들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섭리사와 사명자를 확실히 증거하여라.
23. 악평자는 우리 편이 아니므로 계획적으로 악심을 품고 한 것임을 증거하고, 너희는 악심을 품지 않으니 여기 섭리사에서 산다고 하며 청중들과 해 놓은 것을 보여 주며 증거하여라.
24. ① 하나님 증거, 성령님 증거, 성자 본체 증거다. ② 성자 본체, 즉 중심자 증거다. ③ 시인하고 따르는 청중들 증거다. ④ 악평자들의 그릇된 것 증거다. ⑤ 그동안 섭리사와 사명자가 행한 것 증거다. ⑥월명동 증거다.
25.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는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중심이 아니다. 알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영적 영도자, 주권자가 아니다. 그는 온 인류의 중심이요, 영적 영도자이며, 주권자다.
26. 가령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면, 자기 민족 안에서만 신기록 보유자가 아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다.
27. 이 시대 중심자도 성자와 일체 되었기에 그러하다.

<2012년 8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루를 살아도 '노력'이다.
2. 타고난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묵어서 못 쓰게 된다.
3. 타고난 것 + 노력 + 행하기다.
4. 타고나고, 노력하고, 행하더라도 '신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과 일체 되어야 모든 일이 가능하다.
5. 전능자와 함께 뜻을 이뤄야 신의 능력을 주신다.
6. 제시간에 떠나지 않으면, 영계에서 사역꾼으로 끌려간다.

7. 하늘 일을 안 하는 자들은 모두 세상 사역꾼으로 끌려가서 세상 일을 하게 된다.
8. 세상 일은 아무 공적이 없는 일이고, 하늘 일은 수고한 대로 대가를 얻는 일이다.
9. 하늘의 공적인 일을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할 때까지 세상 사역에 끌려서 부림을 받듯이 하게 된다.
10. 세상에서 자기중심으로 행하면서 사는 자가 그것을 끊고 하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까지 자기 사역에 끌려서 하고, 세상의 사역꾼이 되어서 끌려서 살게 된다.
11. 인간은 둘 중의 하나에 속해 살게 된다.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속해서 산다.
12. 주의 뜻을 벗어난 자는 원상회복될 때까지 벗어난 세계에서 살게 된다. 복직하지 못하면 그 세계로 결정된다.
13. 사망길로 가는 자는 그곳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사망길을 가야 된다. 자기가 갇으니 자기가 벗어나야 한다.
14. 가령 새벽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흑암의 사역꾼이 되어서 끌려 다니면서 그들의 일을 하게 된다. '일어나면' 거기서 벗어난 것이고, '기도하면' 주의 손에 이끌려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15. 작은 일도 목표를 정해 놓고 하고자 해야 해진다.
16. 그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고 느껴야 해진다.
17.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긴장하고 하게 되니,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18. 행하지 않는 자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19. 고로 깨달도록 가르쳐 줘라.
20. 모르는 자는 자기 목숨을 건질 시간에 논다. (= 모르면 자기 목숨을 빼앗기면서도 논다.)
21. 아는 자는 자기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하고 뛰어가는데, 모르는 자는 자기 운명을 놓고 남의 일만 해 준다.
22. 알려면 자기 영혼과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자기 영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된다.
23. 자기가 주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 주도 어쩔 수가 없다.
24. 자기가 절대 주의 뜻을 행하니, 사탄도 어쩔 수가 없다.
25. 자기 선택, 자기 구원이다. 구원자는 가르치고 말해 줄 뿐이다.
26. 혼자 하기 힘드니 주의 손을 잡고서 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의 손도 잡고서 힘 받으며 가라.
27. 청중 속에 들어가면 그 바람에 쉽게 가지니, 섭리의 청중 속에 들어가라.
28. 몰라서 못 하는 자는 배우고, 알면서도 못 하는 자는 행하는 자를 붙잡아라.
29. 자기 주관이다. 자기를 주관하고 다스려라. 자기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큼 만물도 타인도 다스리고 주관한다.

30. 천국은 받아 놓은 밥상이다.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여라.
31. 주님은 항상 너를 사랑하니, 너 자신만 주님께 받은 뜻을 깨뜨리지 말고 하면 된다.
32. 주님의 뜻을 깨뜨리고, 배신하고, 사탄을 좇고, 배신자를 좇으며 행하는 자는 그들과 싸우면서 그 깊은 사망의 계곡을 올라와야 된다.
33. '기회'는 지옥 문 앞까지다.
34. '공적의 기회'는 천국 문 앞까지 준다.
35.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러나 구원은 행할 자의 의향과 마음과 행실에 따라 좌우된다.
36. 자기가 행할 일을 다 하고서 천국 문을 열어라.
37. 자기에게 공적 일이 많은 것은 그만큼 주님이 천국에 예비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이다.
38. 온종일 주의 일을 만족하게 하는 자는 그 값으로 천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영원히 쓸 것을 받는다.
39. 지난날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자는 결국 안 한 것으로 끝난다.
40. 나이를 먹어도 호흡은 해야 산다.
41. 성자 주님은 항상 마음을 보신다. 생각을 보신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행하는지 보신다.
42. 행여 못 했어도 얼마나 하고자 했는지 그 마음과 정신을 보신다.
43. 행하지 못했어도 아예 마음도 안 먹는지, 아예 생각도 안 하는지, 정신은 살아 있는지 보신다.
44. 마음먹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정신이 살아 있지 않으면 죽은 자다.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45. 마음이 살아 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다. 고로 다시 살릴 수가 있다.
46. 하면 되는데 안 하니, 자기가 자기 욕도 죽이고 자기 영도 죽인다. 마음과 행위가 생명이다.
47. 형제와 더불어 같이 행하면 쉽다.
48. 마음먹고 하면 남은 시간을 가지고서도 행할 수 있다. 안 하려면 세월이 가도 못 한다.
49. 실천은 화살이다. 총이다.
50. 불의한 실천은 자기에게로 화살이 예정되어 있다.
51. 복을 받다가도 화를 받으면서 살면, 힘들게 벌어 놓고 그것을 탕진하고, 또 벌어 놓고 그것을 탕진하는 것을 반복하며 사는 자와 같아서 남는 것이 없다.
52. 복만 받고 살고, 환난과 핍박은 축복으로 이기는 것이다.

1.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시간이 다 가고 나서 그제야 시간이 지났다고 아쉬워하며 할 일을 못 했다고 아쉬워한다.
2. 시작부터 뛰고 달려야 다 한다.
3. 사람은 자기 세계로 발달되어 살아간다.
4. 자기가 행할 일을 자기가 하면 쉽지만, 남이 대신 해 주면 너무나도 어렵다. 자기 구원도 마찬가지다.
5. 자기 할 일 자기가 하고, 자기 구원 자기가 행함으로 이뤄야 된다.
6. 남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서 행하게 하려니 어렵고도 힘이 든다.
7. 자기가 깨닫고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행해야 된다.
8. ‘행하기’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렇게도 힘들다. 자체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힘든 일을 해야 하니, 행함으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이다.
9. 행해도 고통, 행하지 않아도 고통이다.
10. 그러나 행하면 얻게 되고, 행하지 않으면 고통만 남게 된다.
11. 성자와 일체 되어 같이 하고, 성자의 욕과 일체 되어 해야 된다.
12. 실천하면 날아간다.
13. 마지막 봉은 성약 신부 사랑 봉이다.
14. 지난날 성자께서 내게 보이신 기적을 지금도 현실 속에 개인·민족·세계적으로 계속 행하시며 보이신다.
15. ‘믿음’은 결실이요, ‘의심’은 유실이다.
16. 해 놓은 것도 못 믿느냐.
17. 안 믿어지면 네가 해 봐라. 된다.
18. 믿는 자만 실천하여 열매를 맺어 얻고 살고, 의심하는 자는 꽃만 보고 살아가니 허무하게 살다 끝난다.
19. 믿어 주는 자에게만 얻은 것을 보여 주고, 함께 먹고 즐기며 산다.
20. 열매를 보고 따라야 하는데, 앞만 보고 따르기도 하니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21. 돈, 명예, 자기 뜻에 야심을 두고 행하던 자들은 전능하신 성자가 보시고 다 쪼개어 내던지신다.
22. 품종을 보고 질을 보고 선택하고 키워라.
23. 가시나무에는 사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24. 가시나무는 애초부터 심지 말아라. 가시나무는 보이지 않는 땅속에 뿌리를 뻗고 좋은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빨아 먹

으며 기어 나간다.

25. 여우 새끼와 야수 새끼는 어릴 적에는 잘 모른다. 고로 분별하고 키워야 된다. 여우 새끼와 야수 새끼는 키워 놓으면 주인을 물고, 주인의 귀한 보따리를 물고 달아난다.

26. 염소 새끼, 독사 새끼, 야수 새끼도 어릴 때는 모두 귀엽고 예쁘다. 그래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들판에다 내던지고, 애초부터 품종을 골라서 좋은 것을 길러야만 후에 후회가 없다.

<2012년 8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사를 나가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고, 이들의 운명이 본래부터 예정돼 있었느냐고 물으니, 성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본래는 천국으로 예정됐는데 책임을 못 해서 지옥으로 가게 됐다.

2. (왜 자기 책임을 못 하느냐고 물으니, 성자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기도하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기지 못하여 책임을 못 하게 된다.

3. 자기 책임을 해야 존재한다.

4. '책임'은 자기 생명을 존재하게 한다.

5. 자기 책임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축복해 주신 것들을 얻는다.

6. 인생은 얻기 위해서 배우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으며 자기 책임을 하면서 산다. 자기 책임을 하면 소망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이다.

7. 자기 구원도 자기 책임을 해야 얻게 된다.

8. 전능하신 성자가 시대의 구원자를 통해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자다.

9. 세상의 어떤 존재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그것을 만드는 데까지 책임을 다해야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신앙 안에서 사람의 육과 영도 그러하다. 자기 책임을 다해야 육의 삶도, 영도 온전히 만들어진다.

10.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존재하려면 자기 책임을 해야 된다.

11.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께 기도하여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 책임을 다하여라.

12. 인간은 전능자와 구원자와 일체 돼야 완전하다.

13. 인간 자체로는 반쪽 인생이다.

14. 모든 존재물이 완성되려면 만드는 자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

15. 책임 분담 완성은 '존재 완성'이다.

16. 책임을 하다 말면 '존재 미완성'이다.

17. 인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가 주는 책임이 있다. 이를 행해야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18.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시즉시 행하여라.
19. 매일 존재, 매일 책임이다.
20. 책임을 하는 만큼 차원이 올라간다.
21. 개인, 가정, 민족, 세계, 하늘까지 책임이다.
22. 하나님도 성자도 인간을 통해 해야 될 책임이 있다.
23. 책임을 해야 소원을 이루며 존재하게 된다.
24.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는 다 해 주시겠지?’ 인식하고 산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가 다 해 주셨느냐? 하나님 존재의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 존재의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존재체가 다르다.
25. 가령 부모가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부모가 힘이 있어 아기를 위해 다 해 준다고 해서 아기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기도 자기 자체 기능을 위해서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젖을 먹여 주면,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자기 자체 기능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존재한다.) 하나님과 성자 앞에 인간도 그와 같다.
26. 지금 이 잠언을 쓰는 시간은 새벽 1시다. 잠언을 주는 것은 성자의 책임이요, 잠언을 받아쓰는 것은 내 책임이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주셨으니, 나의 노력과 책임에 따라 성자께서 더욱더 말씀을 주신다.
27. ‘책임’이란, 존재를 만들기 위해 할 일이다.
28. 성자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나는 일어나 기도했다. 고로 주님은 이와 같은 잠언이 생각나게 해 주셨다. 주님이 잠언을 주셔도 받는 자가 받아쓰는 책임을 안 하면, 이 잠언들은 역사에 남기지 못하고 모두 깨닫게 해 주지 못하고 내게서 끝나고 만다.
29.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을 안 했더니 그 일이 안 되었다.
30. 책임은 할 일이다.
31. 책임은 그 책임의 사명자가 하는 것이다.
32. 책임자는 그 일을 잘 아니 더 잘하게 된다.
33. 책임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강하다.
34. 책임자가 주인이다.
35. 전능하신 성자는 책임자에게 함께하신다.
36. 책임자는 운명을 좌우시킨다.
37. 자기 책임분담을 보화 찾듯 찾아라. 자기 책임이 너무도 많다. 수십 가지를 찾아라.
38. 성자 앞에 해야 할 책임분담을 어서 찾아서 행하여라. 즉시 잘되고 형통한다.

39. 깨닫는 자는 기록해서 주는 책임, 외쳐 주는 책임이다.

40. 사람이 책임을 못 하면 악한 자가 된다. 책임을 하여 자기 육과 영을 선하게 만들지 못하면 악한 육과 영이 된다.

41. 세상에서 ‘육’이 존재하면서 육을 안 쓰면, 육은 시체같이 아무것도 못 한다.

42. 완벽한 ‘차’가 있어도 책임을 해 주는 만큼 간다. 가만히 두면 안 간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2012년 8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낮>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육체를 쓰고 육의 일을 한다. 그러다 육이 잠을 자는 <밤>에는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자기 육체를 쓰고 영의 일을 한다.

2. <밤>에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자기 육체를 쓰지 않으면, 형체로 존재하지 못하여 영적 세계에서 못 나타난다.

3. 바람은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런데 바람이 풍선을 쓰면 그 형체가 보여 바람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4. 우리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는 존재하고 있다. 비유컨대 바람같이 존재한다. 고로 ‘육신’이라는 형체를 쓰고 나타나야 그 형체가 보인다.

5. 혼체는 자기 육신을 쓰고 형체를 이루며, 육계에서도 나타나고 영계에서도 나타난다.

6. 밤에 자기 육신이 잘 때,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초자연적 형체로 영적 세계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혼체’다. 낮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를 쓰고 나타나기에 육신의 모습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밤에는 혼체가 자기 육신을 쓰고 나타나도 자기 육신의 모습같이 안 보이고, 초자연적 현상의 영체의 모습으로 제조되어 나타나 형체를 이룬다. 그렇다고 혼체가 영체는 아니다. 영체는 따로 있다. ‘혼체’는 육체에 속한 존재로서 영체의 전 단계에 속한 존재다. 꿈에 보이는 자기 형체가 곧 자기 혼체다. 혼체가 존재하기에 꿈에 보이는 것이다. 혼체는 육체의 결합으로 형성된 형체다.

7. 물리 세계도 성분과 결합 방식에 따라 ‘색’도 다르고, ‘형성체’도 다르다.

8. 육계에서 마음·정신·생각이 육으로 결합될 때는 ‘육체’이고, 마음·정신·생각이 영적으로 결합되면 그 모습이 영의 세계 형체로 보인다. 곧 ‘혼체’다. 혼체는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한계를 못 벗어나듯이 혼체는 영체보다 급수가 낮아서 지상에 속한 영의 세계를 못 벗어난다. 혼체는 영체와 달라서 천국급 형상이 못 된다. 혼체는 지상의 혼적 세계나 지상영계에서 보고 느낀다. 지상영계에서도 차원 높은 곳이 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혼체가 그 정도 급의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계시를 받게 된다.

9. 기도를 많이 하여 신령해지면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또렷해져서 혼체의 행함이 잘 보인다.

10. 혼체가 차원이 높아지면, 자기 육체를 이탈하여 자기 영체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혼체는 자기 영체와 함께 영계를 다니게 된다.

11. 자기 혼체가 자기 영체를 보기도 한다.

12. 기도를 많이 하고 정신적 차원이 높은 자는 평소에 기도할 때도, 생시에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체’로서 행한다. 또한 자기 마음의 눈을 떠서 혼적 세계에서 보고 판단하게 된다. 고로 기도할 때 어떤 내용들을 영화처럼 계속 순서별로 보게 된다. 낮에 육신을 쓰고 보듯이 영의 현상을 보게 된다.

13. 자기 존재를 위해서 ‘육체 세계’와 ‘혼체 세계’와 ‘영체 세계’를 배워야 된다.

14. ‘인간’은 전능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양과 형체로 창조되었기에 무한한 존재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육계로 배우고, 신령한 영계로 배워라.

15. 배우고 알고 행하는 만큼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차원 높은 세계에서 살게 된다.

16. 이 세상에서도 각각 차원대로 살기에 저마다 존재하는 세계가 달라서 서로 못 만나고 산다. 영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영계에서도 각각 차원대로 살기에 저마다 존재하는 세계가 달라서 영원히 못 만나는 세계로 갈려 산다. 다만 높은 차원에 있는 영들은 낮은 차원의 영계에 가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낮은 차원에 있는 영들은 영원히 높은 차원의 영계에 가 보지 못하여, 높은 차원의 영계의 삶을 모른다. / 원시인들과 문명인들과 같다. 문명인들은 원시인 세계에 가 보기도 하지만, 원시인들은 문명인 세계에 오지 못한다. 평생 갈려 산다. / 이 세상에서도 한마을에서 살아도 집마다 사는 차원이 천차만별이고, 한집에서 같이 살아도 개인마다 사는 차원이 다르듯이 천국도, 낙원도, 각 영계도 그러하다.

17. 가난한 자가 재벌의 세계를 모르고 살듯이, 영계에서도 낮은 차원의 영계에 사는 영들이 높은 차원의 영계의 삶을 전혀 모른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의 영 급에 처해 존재하면서 산다.

18. 같은 세상에서 형제로 살더라도 같이 배우고, 같은 사상과 이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같은 위치에서 산다.

19. 자기 주관대로 자기는 맞다고 하면서 산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살면서 가난한 만큼 고통을 받듯이, 완성되지 못하여 미완성 영계에 사는 영들은 완성되지 못한 만큼 여러 고통을 겪고 산다.

20. 온전한 세계에 가지 못한 영들은 지난날 자기가 못 한 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한숨·고뇌·걱정·불안·초조·근심·외로움·쓸쓸함으로 산다.

21. 영계에 가 보면, 거기 영들과 고통 받는 불행한 영들이 너무 많다.

22. 혼적 세계에 가 봐도 거기 혼들과 고통 받는 불행한 혼들이 너무 많다. 어떤 영은 그 육신이 악하게 살았기에 짐승이 되어 깊은 음부의 계곡에서 산다. 자기 영이 짐승이 되었는지는 자기가 안다. 자기 영에 털이 나고 짐승처럼 변해 있는 것을 보고서 안다. 사람의 육체가 짐승이 되었으니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그러니 괴로워하며 자기 몸에 난 털을 쥐어뜯는다. 어떤 영은 반은 뱀의 형상이다. 자기 모습이 너무 끔찍하니 몸부림치며 뱀의 모습을 끊어 내려고 한다. 이는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의 영이며, 혹은 불신한 자들의 영이다. 그 영의 모습이 사탄이 되었다.

23. 이 세상에서도 하층에 사는 자들은 상층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누리며 사는지, 자기가 안 살아 봐서 좋다고만 느끼지 그 삶을 잘 모른다. 자기가 살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차원이 낮은 세계에 사는 영들은 차원이 높은 세계에 사는 영들이 얼마나 좋은 곳에서 사는지, 안 살아 봐서 추측만 하지 전혀 모른다. / 그러나 차원이 높은 영계에 사는 영들은 차원이 낮은 영계를 볼 수 있으니, 그 삶을 안다.

24. 세상 종교 세계에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신 최고의 사명자를 중심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밀의 단계의 종교는 전혀 모른다. 높은 차원에서 성자를 모시고 시대 보낸 자를 모시고 사는 자들만이 알고 산다.

25. 안 보면 모르고, 살아 보지 않으면 모른다.

26. 밀의 단계에 있는 자는 위의 단계에 있는 자들의 삶을 잘 모른다. 하지만 위의 단계에 있는 자는 밀의 단계에 있는 자들의 삶을 다 안다.

27. 후진국 사람들은 선진국의 삶을 보아도 선진국의 수준 높은 삶을 전혀 모른다. 그렇게 안 살아 봤기 때문이다.

28.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삶을 보아도 안 살아 봐서 모른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차원이 낮은 세계에 사는 영들은 높은 세계에서 사는 영들의 삶을 모른다. 봐도 모르고, 볼 수도 없다.
29. 인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삶을 영원히 모른다. 그 신부가 되어 그 단계에서 살면 어느 정도 알 것이다.
30. 전능자는 인간을 본래 창조한 형상과 모양까지 키우고 만들어 같이 사신다.
31. 인간의 육의 삶이 완성되고, 인간의 영이 영의 세계에서까지 완성되게 하여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32.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줘야 받는 자가 받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성자도 인간이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혼과 영을 하늘 앞에 드려야 '순리'로 받으신다.
33.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하늘 앞에 드려야 자기 마음과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쓰고 임하여 뜻대로 쓰신다.
34. 기성 주관권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말씀과 영적인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배우고 살지 않아서 전혀 모른다. 자신들의 세계인 기성 세계에 대해서만 안다.
35. 안 배우고 안 살아 본 자는 1000년이 가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자들의 삶을 전혀 모른다.
36. 구시대에서 새 시대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새 시대에서 새 시대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역사다.
37. 이 모든 차원은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차원'이 '원인'이 되어 결정된다. 선택은 자유다.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마음먹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과 성자께 간구한 대로 자기 차원이 결정된다. / 기성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새 역사에 오지 못한다. 새 시대 젊은이들은 기성 신앙생활을 안 하고도 새 역사에 와서 새 삶을 산다. 새 역사는 젊은 시대에 보낸 자가 와서 하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깊이 기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자기 대답'이 마음으로 들려 온 것이다.
2. 깊이 기도한 상태라면 '주님의 대답'이 마음을 통해 전해진 것이다.
3.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영의 마음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의 귀로 들려온다.
4. 기도할 때 영계로 들어가야 1단계, 2단계씩 보이고 깨닫게 된다.
5. 기도할 때 영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면, 자기 육성과 자기 의지로 느껴지고 자기 마음의 생각이 들린다.
6. 성자 주님의 대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라.
7. 3~4단계까지는 올라가야 영의 단계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육의 세계 단계다.
8. '주님이 주신 것'과 '자기 마음이 준 것'을 분별하여 깨달아라.
9. '성령의 감동'과 '자기 감동'을 분별하여라.

10. 상대성으로 오는 것인데,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11. 상대는 마귀가 되기도 하고, 천사가 되기도 하고, 협조 영이 되기도 한다.
12. 파악하고 분별해야 한다.
13. 고기를 먹을 때 닭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는 알고 먹어야 속지 않고, 그 맛을 더욱 잘 알게 된다.
14. 환상을 보거나 비유로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15. 계시는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보이며 계시한다.
16. 육계를 뚫고 들어가야 영계에 들어간다.
17. 지상영계는 육 영계다.
18. <낮>에는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자기 육체를 쓰고 행하며 육계에서 살고, <밤>에는 마음·정신·생각이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 자기 육체를 쓰고 '혼체'로서 혼적 세계에서 산다.
19. 사람에게에는 <육체>가 있고, <혼체>가 있고, <영체>가 있다. <육체>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체를 쓰고 낮에 활동하며 살고, <혼체>는 자기 육신을 쓰고 마음과 정신을 중심하여 혼적 세계에서 활동한다. <영체>는 육의 세계와 혼적 세계와는 아예 다른 영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20. 낮에는 혼체가 자기 육신을 쓰고 육체로 세상에서 활동하고, 밤에는 자기 육신을 쓰고 혼체로 혼적 세계에서 활동한다.
21. '혼체'는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육체나 영체같이 지체는 없다. 꿈에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육신을 쓰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의 영체같이 보이는 '혼체'다. '혼체'는 마음·정신·생각이 육신을 쓰고 혼적 상태에서 하나의 모양을 이루고 존재하고 나타난다. 혼체는 육체다. 고로 혼체는 자기 육신을 쓰고 초자연적 현상에서 나타나 꿈에 보인다.
22. <낮>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신을 쓰고 육의 세계에서 나타나 살고, <밤>에는 자기 육신을 쓰고 초자연적 현상에서 영체같이 나타나 산다. 혼체는 영체가 아니라 육신을 쓰고 혼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23. 꿈에 자기 모습은 혼체로서 자기 육체를 쓰고 나타난 현상이다.
24. 육신이 죽으면 혼체가 영체에게 흡수되어 영체를 쓰고 나타난다. 이때는 영이 중심이 된다.
25. 사람은 육체와 혼체와 영체로 활동한다. '육체'는 이 세상에서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와 일체 되어 활동한다. 그러다가 육체가 잠을 잘 때는 '혼체'가 자기 육체를 쓰고 혼의 세상인 꿈에서 활동한다. 혼체는 영체가 아니다. '영체'는 영의 세계 차원에서 활동한다. 육체와 혼체와 영체는 일체다.
26.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이 순간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때 영적 현상같이 자기가 꿈같은 세계에서 돌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초자연 현상으로 혼적 단계에 이른 것이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체로 나타날 때는 육신 현상이 분명한데, 혼적 상태에서 혼체로 나타나면 육 같지 않다. 혼체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중심이 되어 자기 육신을 쓰고 나타나 활동하는 영적 현상이다. 혼체는 자기 육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육 같지는 않다. 육이 영적 현상으로 혼체로 보여서 그러하다.

27. 혼체가 영체를 쓰고 나타나면, 그때는 혼체가 아니고 영체로 나타난다. 쪼개서 봐야 확실하다.

28. 낮에는 육의 세계요, 밤에는 혼의 세계, 곧 꿈의 세계다.

29. 같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육의 세계에서 나타나느냐, 혼의 세계에서 나타나느냐,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느냐에 따라 그 현상이 다르다.

<2012년 8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꿈에 혼적 상태에서 계시를 많이 주신다.

2. 그 사람의 혼적 상태, 즉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에 따라서 주신다.

3. 낮에는 계시를 육적 상태에서 주신다. 밤에는 꿈속에서 혼적 상태에서 주신다.

4. 사람에게는 육체, 혼체, 영체가 있다. 곧 육, 육혼, 영혼이라고 할 수 있다. 쪼개야 각각 확실히 알고 나타나 활동하게 된다.

5. 꿈속에 혼계에 들어가면 지상에 사는 영들도 보고 자기 같은 현상의 혼들을 많이 본다. 사람의 마음 상태를 혼체로 보게 된다. 평소 생시에 좋아하는 사람이면 꿈속에서도 좋아하며 대하고 사랑도 한다. 이 상태에서 주님은 계시를 주기도 하신다.

6. 손을 얹어 놓으면 손바닥이요, 손을 뒤집으면 손등이다. 이와 같이 낮에는 육계요, 밤에는 혼계, 곧 꿈의 세계다.

7. 꿈의 세계도 여러 단계가 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보는 단계도 있고, 자기와 같은 혼체를 보는 단계도 있고, 영적 단계에 들어가 영들을 보는 단계도 있다.

8. 혼체는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상태와 육의 생활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며 꿈에 보게 된다.

9. 혼적 상태에서 보는 것이 '꿈'이다. 이 상태에서 주님이 계시하신다. 어느 때는 영의 차원에서 계시하기도 하신다.

10. 혼 자체가 형체가 아니고, <낮>에는 자기 육신을 쓰고 육체로 나타나 일하고, 육신이 활동하지 않는 <밤>에는 육체를 쓰고 혼체로서 나타나 활동한다는 것이다.

11. 혼체는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로서 <낮>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살고, 육신이 자는 <밤>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혼체로서 혼계에서 산다.

12. 자기 마음·정신·생각대로 혼체가 움직인다. 자기 육체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육계에서 살듯이, 혼체도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 자기 육신을 쓰고 혼계에서 활동하며 산다.

13. 정신계의 사명자가 정신계에 대해 알고 말한다. 정신계는 혼계다.

14.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가 혼체다.

15. 혼체는 영적 단계인 혼적 단계에서 나타난다. 혼체는 육체를 영적으로 썼기에 육체같이 만지면 만져진다.

16. 혼체들은 혼적 세계에서 육체처럼 사랑하기도 한다. 혼체는 영체보다는 덜 느끼지만, 육체보다 100배나 더 확실히 느낀다.

17. 육체 육의 세계, 혼체 혼의 세계, 영체 영의 세계다.

18.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각 위로 존재하듯이, 사람에게도 육체, 혼체, 영체가 있는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를 쓰고 나타나면 육체요, 영적 세계의 하나인 혼적 세계로 나타나면 혼체다. 혼체는 육신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영체는 혼체와 완전히 다르다.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영체는 육체같이 완전히 따로 존재한다.

19. 육체를 가지고 영적 상태에서는 혼체로 나타나고, 육적 상태에서는 육체로 나타난다. 혼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영체는 육체를 가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20. 혼체는 자기 마음과 정신을 겸하여 영을 중심하여 스며들어 나타난다.

21. 눈 뜨고 잠재의식 단계에서 있으면 잠이 안 들지만 육계에 속한 것이 아닌 상태다. 이때 가만히 누워서 보면, 자기 마음과 정신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혼체로 나타나 자기 육체를 쓰고 돌아다니는 것이 보인다. 여실히 보인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적 상태에서 형체가 되어 행한다. 그 단계에서는 육이 죽은 자들의 영체도 보이고, 육이 살아 있는 자들의 혼체도 보인다.

22. 영의 세계는 제재 없이 어느 정도는 다 보이니, 지상 육계와는 형상이 다르다.

23. 현미경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못 보는 것을 보듯이, 영적 현상에서 보면 영들이 세밀하게 보인다. 두 가지로, 영체들도 보이고 혼체들도 보인다. 그 사람의 육체를 쓰고 그 마음·정신·생각의 상태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혼체다.

24. 자기 방에 책이 한 권 있는데 낮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의 눈으로 보고, 눈을 감고 있을 때는 혼체가 육신을 쓰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 혼적 상태에서 보니,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

25. 사람도 혼적 영적 상태에서 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과 정신 상태가 보이니 다르다.

26. 육적 상태는 1차원이고, 혼적 상태는 2차원이고, 영적상태는 3차원이다.

27. 육적 상태에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깊이 들어가면 혼적 상태에 이르게 되고, 혼적 상태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 영적 상태로 들어가면 자기 혼체가 육체를 이탈하여 영체로 가서 영과 같이 움직이며 활동하게 된다.

28. 차원 높이 들어가야 육체 이탈이 되어 혼적 상태를 벗어나 영적 상태로 들어간다.

29. 육계보다 혼계이고, 혼계보다 영계다. 영계도 지상영계보다 더 깊이 들어가 높은 영계에 가면 각종의 것을 다 보게 된다.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영의 세계는 차원대로 존재한다. 자기가 형성된 대로 각 차원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존재한다.

2. 태 안의 아이의 형체는 달마다 형성되는 것이 다르다. 육계에서도 자기 마음과 정신이 형성된 대로 육신이 움직인다. 고로 사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다. 영계에서도 자기 영이 형성된 대로 각각 다르게 산다.

3. 육계에서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형성된 대로 그 혼체도 혼의 세계에서 형성되어 있다. 혼체가 형성된 대로 영체는 혼체의 의의 영향을 받고 선한 영, 혹은 악한 영으로 형성된다. 그리고 선한 영은 선한 영계로, 악한 영은 악한 영계로 간다. 형성된 대로 간다.

4. 세상에서 노래하는 자는 그 마음과 정신이 그같이 형성되어 혼계에서도 혼체로 노래하고, 영계에서도 그 영이 노래한다.
5. 오직 성자의 영을 따라 행해야 육도, 혼도, 영도 제대로 형성되어 모든 의를 영이 다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6. 세상에서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혼체와 영체는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가 일체 되어 형성된 대로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되면 천국에 가되 그 차원대로 가고,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되지 못한 영들은 사망으로 간다.
7. 육체와 혼체는 혼돈되지 않지만, 혼체와 영체는 영계에서 보면 혼돈된다. 고로 분별해야 된다.
8. 마귀는 영체로 나타나고, 사람은 혼체가 육체를 쓰고 나타난다. 고로 육체와 혼체가 하나 되고, 성자와 하나 되어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 능히 사탄을 이긴다.
9.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혼체끼리 만나 교통하기도 한다.
10. 꿈에 어떤 사람을 봐도 주님이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비유로 보여 주어 계시하고 교훈한 것이 있다. 고로 꿈이나 혼적 세계에서 그 사람의 혼체를 만났는지 분별해야 된다.
11. 꿈에 어떤 사람을 봐도 어떤 것은 그 사람과 연관이 없어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영적 상황을 비유로 보여 주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상대가 되는 그 사람과 연관이 있어 그 사람을 보여 행하게 하기도 하신다.
12. 꿈에 혼적 상태에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것은 자기에게만 해당되어 그 사람을 꿈에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대인 그 사람과 연관되어 있기에 꿈에 보기도 한다.
13. 인생이 세상에서 살 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여건이 다르듯이, 혼체 세계도 육체의 반응 세계라서 상황에 따라 수천 가지로 여건이 다르다. 또한 영계의 법이 있어서 수만 가지로 여건이 다르다. 고로 늘 주님께 물어봐야 그 가닥을 알게 된다.
14. 전파의 세계는 복잡하다. 이와 같이 영계도 그 삶의 상황이 아주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말은 차원대로 다양하다는 말이다.
15.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16. 주님께 안 물어보고 하면 10년, 100년 가도 모른다. 간절히 물어보아라. 합당하면 주님이 1차, 2차 가르쳐 주신다. 영계도 공부하듯 배우는 것이다. 전도할 대상도 주님께 물어보고 행하면 쉽다.
17. 사람을 키울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키우면 실망하지 않게 된다.
18. 사람에게에는 육체 - 혼체 - 영체가 있다. 혼체는 영적 상태로 보면 있다. 그러나 그 형체가 육체와는 다르다. 육체를 혼체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19. 꿈에 혼체를 보는 것이다. 곧 그때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다. 고로 혼체의 모습은 자기 심령 상태에 따라 다르다.
20. 자기 마음·정신·생각·행위에 따라 그대로 혼체가 형성된다.
21. <낮>에는 마음·정신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로 활동하고, <밤>에는 혼체로 활동한다.

22. 기도를 깊이 하여 자기 마음 상태와 정신 상태가 또렷하면, 혼체도 확실하게 보이고 혼체의 행위도 확실하다.
23. 혼체급에서만 활동하면 그 수준에 처해 산다. 혼체급의 삶을 통해서 영체급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의 형상이 좋아진다.
24. 주님은 각 사람의 환경과 위치를 교훈하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혼적 상태에서 각종으로 보여 주신다.
25. 한번은 내가 있는 장소는 좁은 방인데, 혼적 상태로 보니 내가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상해서 주님께 물어보았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있는 환경을 보여 준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을 보여 준 것이다.” 하셨다.
26. 사람의 마음·정신·생각·행실 상태에 따라 주님은 혼적 세계에서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27. 자기 육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보여 주거나 말하고 싶다고 해서 혼적 세계에서 마음대로 통하지 못한다. 자기 마음과 정신과 행실 상태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하다.
28. 혼적 세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 그 법 속에 들어가서 행해야 된다. 빈 물레도 룬 속에 들어가서 바퀴를 돌려야 돌아간다. 이와 같이 혼적 세계도 하나님 법 속에 들어가 합당하게 돌려야 된다.
29. 자기가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면, 꿈에 혼적 세계에 들어가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나, 자기와 잘 통하는 자나, 자기가 만나기 원했던 자를 보게 된다. 그러나 자기만 보는 것이지, 상대는 자기를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한다.
30. 혼계에서 서로 보고 대화하기도 한다.
31. 꿈에서 서로 보더라도 혼체와 혼체끼리 보는 것이다.
32. 누가 주체가 되어서 보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대개 보고자 했던 자만 보는 것이 보통이다.
33. 어떤 사람을 육으로 못 봐서 꿈의 세계인 혼적 세계에서 보려고 기도했더니 꿈에 그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편지로 너를 꿈에 만났다고 하니, 본인은 나를 못 봤다고 했다. 자기 급의 영계다. 자기 차원대로 본다.
34. 심령 기준이 되고 차원이 되는 자만 보게 된다.

<2012년 8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적 상태에서도 계시하고 예시하고, 혼적 상태인 꿈에서도 계시하고 예시하기도 한다.
2. 혼적 단계에만 가도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된다.
3.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월명동 바위 형상도 10년, 20년을 봐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초자연적 세계인 혼적 세계를 제대로 보겠느냐.
4. 육계나 영계나 하나하나 자세히 근본 형태를 인식하고 봐야 보인다. 보는 자만 그 세계를 안다.
5. 형상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초상화처럼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6. 영계도 추상화같이 뜻과 의미를 아는 것만 목적하고 보면 된다.

7. 추상적인 것도 자세히 보면 초상화같이 자세하고 확실히 보인다.
8. 세상의 모든 사건도 자세히 봐야 제대로 알게 되고 확실히 보인다. 자세히 안 보면 추상적으로 보인다.
9. 어떤 사물도, 어떤 문제도 자기 지식·지혜·마음·정신·생각의 수준과 차원대로 본다.
10. 영계도 자세히 보는 자가 제대로 본다.
11. 성자 주님도 자세히 보는 자와 차원이 높은 자가 본다. 1000년, 2000년 역사가 흘러도 자세히 안 보면 못 본다.
12. 지구세상 만물도 자세히 봐야 숲속에 있는 것 폭포수도 보고, 바위도 보고, 바위 형상도 본다. 사람도 자세히 봐야 그 사람의 특성과 모양과 구조와 형태를 보게 된다.
13. 자기 마음과 정신과 함께 자기 육신을 초자연적 영적 현상에서 흔적으로 보이는 형체를 ‘혼체’라 한다.
14. 마음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야 영적인 것이 생각나고 영적인 현상이 보인다.
15. 정신 세계, 마음 세계도 급하게 오르면 그 차원이 낮다.
16. 토끼나, 개나, 소에게 우리 집 주인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 위에 존재하고 있기에 못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우리 인간들에게 세상의 주인을 하라고 하셔도 사람은 자기 위의 영들을 못 다스리기에 못 한다.
17. 인간을 보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면 충분히 다스린다. 이는 인간이 짐승 위에 있기 때문이다.
18. 낮에는 마음과 정신이 육신을 쓰고 생활하지만, 육신이 잠을 자는 밤에는 마음과 정신이 육신을 쓰고 영적 현상으로 나타나 혼체로서 흔적 세계에서 다닌다. 지상세계를 흔적 세계에서 보니, 육의 눈으로 볼 때와는 똑같이 안 보이고 더 돋보이고 세밀하게 보이고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19. 육체를 흔적 세계에서 보니 더 확실히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고, 그 사실이 자세히 묘사되어 보였다.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 상태에 따라 더 돋보였다.
20. 기계는 핵심 때문에 움직인다. 고로 핵과 연결된 부분들이 움직이며 기계가 돌아간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핵적인 자가 움직이니, 거기에 연결된 자가 움직인다.
21. 사람도 핵심인 뇌가 움직이니, 그에 연결된 각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마음·정신·생각이 핵심인 뇌와 일체 되면 지체가 움직인다.
22. 몸 따로, 마음과 정신 따로 놀면 몸이 안 움직인다.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 움직여진다.
23. 혼체가 차원을 높여 혼계를 벗어나 영계에 가면, 자기 영체와 일체 되어 영체를 보게 된다.
24. 더 높이, 더 깊이 가면 더 색다른 것을 보게 된다.
25. 영체와 혼체는 같은 영의 형상체라서 쪼개서 보지 않으면 혼돈된다.
26. ‘혼체’는 육체에 속한 영적 형상체다. ‘영체’는 육체에 연관된 하늘에 속한 실존체로서 그 형체가 육체같이 영체로서 따로 존재한다. ‘혼체’는 자기 육신을 쓰고 초자연적 영적 현상에서 형체를 이루어 나타난다.
27. 쪼개서 봐야 육체 - 혼체 - 영체를 알고, 각각 그 기능을 알게 된다.

28. 세상이 어떤 것도, 영적인 어떤 것도 쪼개서 봐야 그 성능과 개성을 알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게 된다.

29. 쪼개는 기술, 지혜, 지식이다.

30. 하나님과 성자의 책임, 땅에 보낸 구원자의 책임, 구원받을 인간의 책임을 각각 쪼개서 가르쳐 주어야. 그래야 자기 책임을 알고 행한다.

31. 영계는 천국 - 낙원 - 선영계, 지옥 - 무저갱 - 음부(악영계)를 중심으로 그 세계에서도 각각 수천 개로 쪼개져 존재하고 있다.

<2012년 8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육계도 혼계도 영계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

2.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두고 말했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

3. 신약은 구약에 비해 생명권이지만, 성약에 비해 사망권이다.

4.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는 낮에는 육신을 쓰고 활동한다. 그러다 밤에 육신이 잘 때는 혼체가 영적 현상으로 자기 육신을 쓰고 혼적 상태에서 활동한다. 이것이 ‘꿈’이다. ‘혼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5. (중요) 혼체와 영체는 다르다. <혼체>는 자기 육체를 쓰고 초자연적 영적 현상으로 형체를 이루지만, <영체>는 자체로 형체가 있다. 곧 육체같이 따로 존재체가 있다.

6. 영의 세계는 설명이 잘 안 되니, 영계에 들어가서 배워야 된다.

7. 영의 세계는 마음과 영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세계다.

8. 주님을 믿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죽는다.

9. 자기 혼체가 꿈에서나 기도 중에 자기 영체를 보기도 한다. 혼체가 육체를 쓰고 보았기 때문에 혼적 단계에서 나왔을 때도 그 생각이 난다.

10. 영체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영계에서 활동한다.

11. 인간에게는 육체 - 혼체 - 영체가 있다. 모두 형체가 있기에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 생김새가 다르다.

12. 인간 육신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고 혼체도 없어지는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영체로 흡수된다. 영체만이 선악 간에 영원히 존재하며, 선한 영은 생명권으로 가서 영원히 살고, 악한 영은 사망권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

13. 육체와 혼체는 모두 영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14. 육체는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를 위해서 존재하고, 혼체는 영체를 위해서 존재한다. 실상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하며 존재한다.

1. 태 안의 아이가 다 크고 때가 되면 태 안에서 벗어나 독립하듯이, 하나님의 새 역사도 때가 되면 구시대에서 벗어

나 독립하게 된다.

2. 신약역사는 때가 되어 구약역사에서 독립했고, 신약역사 안에서도 천주교에서 루터를 중심으로 개신 기독교로 독립했다. 성약역사도 먼저 다 성장하고 책임을 하여 때가 되니 신약역사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역사의 시작이 독립이 아니다. <독립 역사>는 성장하고 책임을 다하고 때가 되었을 때다.

3. 별통에서 별이 분봉을 하고 독립을 하려면, 그만한 별의 수가 있어야 하고 왕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새 역사도 이와 같다.

4.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낸 영도자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이집트의 종살이를 벗어나고, 이와 같이 성약역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성자가 인도하시어 신약 자녀권을 벗어나 성약 신부권으로 독립하게 된 것이다.

5. 저마다 바로 세워서 각자 존재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선 자들이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의 짐과 고통을 다 받게 되기에 힘들어서 한계를 맞게 된다.

6. 자기 지체라도 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각 지체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바로 서서 그 모든 힘을 받고 있는 지체가 저리고 아파서 못 견딘다.

7. 돌도 각각 세우면 오래 간다. 그러나 옆의 돌을 기대어 놓으면 오래 못 가고 돌 다 넘어진다. 신앙도 그러하다. 그를 잘 가르쳐서 자기가 존재하도록 책임을 하게 해 주어야.

8. 가르치고 행하게 함으로 독립시켜 주어야.

9. 자기가 책임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기만 하면, 자기가 제대로 못 크고 제 갈 길도 못 간다.

10. 커서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11. 어린아이라도 커서 부모를 도와주면 자기 개성의 빛이 나고, 부모도 힘이 안 들고, 자기도 힘이 안 들고 보람 있게 인생을 산다.

12.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가르쳐서 유능하게 하여 스스로 독립하게 하여야.

13. 자기 다리라도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에 계속 얹어 놓으면, 결국 한쪽 다리가 눌리고 저려서 온몸이 굳어진다. 또한 얹어 놓은 다리도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바로 세워서 모두 존재하게 하여야.

14. 행실도 바른 행실을 해야 제대로 제 갈 길을 가게 된다.

15.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제대로 세워서 성자 주님을 모시고 그 분체를 따라서 제 갈 길 가게 된다.

<2012년 8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주님은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존재 세계를 보여 계시하기도 하신다.

2. 꿈에 환상체로 꾸며 보여 주기도 하고, 꿈에 그 사람의 혼체를 보여 주기도 하고, 꿈에 실제 그 사람을 그같이 꾸며 보여 주기도 한다.

3. 꿈속에 혼체도 보이고, 영체도 보인다.

4. (중요) <혼체>는 육체와 같이 존재한다. 곧 자기 육체를 쓰고 영적 현상으로 형체를 이루며 존재한다. 그러나 <영체>는 육체를 벗어나도 자체로 형체가 있다. 고로 영체는 육신이 있는 영체도 있고, 육신이 죽어서 없는 영체도 있다.

5. 자기 영이 성장하여 영 급이 높아져야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

6. 육계에는 육신 한 존재체이지만, 영계에는 여러 형체가 있다.

7. 쪼개서 봐야 제대로 안다.

8. 성자도 근본은 본체 한 분이다. 그러나 수십 가지로 나타나신다. 대역으로 환상체로 나타나 행하신다. 본체가 직접 못 나타나시니 상황에 따라 대역으로 나타나신다. 이 세상에서는 성자가 육을 가진 본체를 중심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신다.

9. 어느 때는 성자 주님이 꿈에서 여자로 나타나 대역을 하며 이와 같이 이리하다 하시고, 어느 때는 어떤 선생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시고, 어느 때는 운전사로 나타나서 행하시고, 어느 때는 산으로 나타나시고, 어느 때는 거지로 나타나서 행하신다. 상황에 따라 깨우쳐 줄 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 때마다 여러 대역으로 나타나신다. 어느 때는 천사로, 어느 때는 부모나 형제로 나타나 뜻을 알리기도 하신다. 모두 쪼개서 풀어야 된다.

10. 성자가 사람과 각종 만물을 쓰고 나타나시고, 혹은 성자가 영들에게 지시하여 하게 하시고, 혹은 환상을 보여 깨닫게 하신다.

11. 주님은 <낮>에는 우리 뇌에 말씀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각종 만물과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밤>에는 꿈이나 혼적 세계에서 혼체로 깨닫게 하신다.

12. 월명동도 꿈에서 보면, 혼적 상태에서 자기 혼체가 보기 때문에 육의 현실과는 달리 보인다.

13. 혼적 상태에서 육계의 것을 보면 달리 보인다.

14. 똑같은 사람도 혼계에서 보면 육신같이 안 보인다. 달리 보인다.

15. 육체 다르고 영체 다르다.

16. ‘육’은 늘 봐도 별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영’은 육신이 행한 것으로 인해 그 형체가 형성되어 있기에 빛나는 영도 있고, 착하고 예쁜 영도 있고, 거지 같은 영도 있고, 젓가락같이 마른 영도 있고, 마귀같이 생긴 영도 있고, 짐승으로 변한 영도 있고, 뱀이 된 영도 있다. 육신 행한 것의 대가로 그 형체가 형성되어 각각 빛나는 영도 있고, 거지 같은 영도 있고, 젓가락같이 마른 영도 있고, 마귀같이 생긴 영도 있고, 짐승으로 된 영도 있고, 뱀이 된 영도 있다.

17. 자기 육신의 마음·정신·생각·행위에 따라 혼체가 달리 보인다. 고로 사람마다 혼체가 달리 보인다. 영적 세계인 꿈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행위의 상태가 그대로 혼체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18. 자기 영 급대로 보게 된다. 차원이 높은 영은 차원이 낮은 영을 볼 수 있지만, 차원이 낮은 영은 차원이 높은 영을 못 본다. 다만 차원이 높은 영이 빛나는 정도는 보기도 한다.

19. 영 급이 높고 차원이 높은 영은 자기는 다른 영의 속을 보지만, 자기 영은 다른 영이 못 보게 가리기도 한다. 급수대로 행한다.

<2012년 8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기도할 때 혼자 자기 목적에 빠져서 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재미없고 기도하는 자신도 재미없다.
2. 기도는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를 받는 자가 대화하며, 그다음에 진정으로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3. 기도는 일과 같아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만 이루어진다.
4. 계시받는 자는 계시받는 기도 골짜기로 들어가고, 전도하는 자는 전도하는 기도 골짜기로 들어간다.
5.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민족 기도 골짜기로 들어가고, 섭리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섭리인 기도 골짜기로 들어가고,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기도 골짜기로 들어간다. 저마다 기도하는 대로 각각이다.
6. 어떤 사람은 기도를 5분, 10분밖에 못 한다. 그런데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1시간씩 잘한다.
7. 정신이 썩어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심령이 죽어서, 마귀가 막아서 기도를 5분, 10분, 20분도 못 하고 끝낸다. / 기도를 오래 하려면, 먼저 교인들 50명, 100명의 이름을 쓰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잘되게 해 달라고 1분씩만 기도해 보아라. 그러면 50분, 100분 동안 기도하게 된다. / 또 자기 영이 잘되게 기도하여라. / 또 죄는 매일 때같이 끼니, 자기 마음과 정신과 행위로 잘못된 것을 꼭꼭 회개하고, 자기가 할 일을 못 한 것을 회개하여라. / 또 저마다 앞날에 어려운 일이 꼭 오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 또 너의 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못하게 10~20분 동안 기도해야 네 복을 안 뺏긴다. / 또 저마다 마귀가 쫓아다니니까 적어도 마귀 쫓는 기도만 10분 이상 해야 마귀가 나간다. 마귀가 쉽게 물러가겠느냐. 마귀와 자기가 싸우는 것이다. / 교역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8. 주님과 '대화 기도'를 하여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세계 혼적 차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보통 2~3시간은 기도하고, <영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보통 4시간 이상 기도하게 된다.
9. 육성으로 기도하면 5분, 10분, 20분, 30분 하다 만다.
10. 혼적 단계에서만 기도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과 꼭 할 일만 또렷하게 생각난다.
11. 혼적 기도다. 혼적 단계는 꿈에 혼체가 다니는 단계다. 이 단계만 가도 주님의 계시를 받는다.
12. 육신이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단계는 육신이 잠자는 단계다.
13. 앞날에 사고가 닥쳐오니 그 날 그것 한 가지만을 위해 기도해도 20분 이상은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신다.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일곱 번 이상 해야 들어주신다. 자기가 안 다치길 원하는 것과, 기도하여 자기에게서 화가 물러가게 하는 것은 다르다.
14. 누가 자기 앞날의 죽음을 걱정하며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자기밖에 더 있느냐. 가르쳐 주었으니 자기를 위해 기도하여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여 앞날을 미리 가르쳐 주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었다. 고로 지금 이 세상에 없다.
15. 자기 위해 기도하여라. 자기를 구원해 주는 성자 본체와 본체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위로와 칭찬이다. 사랑이다.
16. 자기 식구를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17. 6개월 된 신입생도 자기를 구원시키고 부모도 전도했는데,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자기 하나 제대로 구원 못 하니 부모, 형제, 이웃도 전도하지 못했다. 천국에 가서 그 영의 집을 찾으니 없었다. 왜 없냐고 성자 주님께 물으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올 자가 아닌데 여기에 집이 있겠느냐. 기도도 안 하고 인생도 깊이 안 사네?" 하셨다. 그러면 그 영혼의 집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주님은 그 집을 보여 주셨다. 그 급에 해당되는 다른 주관권 세계에 허술한 집이 있었다.

18.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스타들이 천국도 못 가냐. 스타 자격이 없다.

19. 스타들이 천국에 갈까? 12월까지 보자.

20. 지금은 천국 가기에 불가능한 자이지만, 지금은 마지막 기회인 때라서 자기만 마음먹고 행하면 천국 가는 것이 가능하다.

21. 세상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거하고 끝날 자다.

22. 성자 본체와 함께, 그의 육인 본체와 함께다!

23. 성자 주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 대화하신다. 수준이 영성으로 흔적이면 주님과 대화가 되고, 수준이 낮아 육성이면 자기 자체 육성과 대화하게 된다.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감’ 중에서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을 주는 감은 ‘배신감’이다. 이는 가장 큰 죄다.

2. 사랑의 배신, 믿음의 배신, 돈의 배신이다.

3. 성자 주님은 배신자들을 살인자로 보시고 그 대가를 정하셨다.

4. 배신자는 마치 과일나무에서 ‘자기’라는 과일이 크고 있는데 따 버린 자와 같다. 그러니 더 클 수가 없고 죽음을 맞이한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음이다.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길러야 된다. 곧 배신은 복직이 안 된다는 말이다. 배신자는 안 받으니, 새로 낳아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는 천법이다.

5. 마귀가 배신하게 하고, 자신이 배신하고, 자신이 귀한 것을 몰라서 무지로 배신하기도 한다.

6. 복직하지 못한 배신자의 영이 사는 영계에 가 보니, 생명이 상실된 사망권에서 살고 있었다.

7. 배신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행위를 한 자이며, 구원자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한 자로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

8. 배신자의 복직을 주님께 물어보니, 주님은 “과거보다 배나 더 조건을 세우고 올라와야 한다.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게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행하고, 더 충성해야 된다.” 하셨다.

9. 사도 바울은 배신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배신 죄를 지었다. 이를 거울로 삼아라. 믿다가 불신한 것이 ‘배신’이다.

10. ‘배신’은 믿고 따르고 사랑하다가 불신하고 믿음과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11. 사도 바울은 핍박 죄를 지었다. 예수님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하여 신약에 해당되는 살인죄도 지었다. 고로 신약권으로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도가 되었다.

12. ‘믿음’도 기도 안 해서 순간 시험에 든 것과 아예 불신하고 저버린 것이 다르다. ‘사랑’도 순간 시험에 들어서 흔들린 것과, 연속해서 타인과 사랑의 관계를 하며 타락한 것이 다르다.

13. 전지전능하신 성자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니, 자기가 얼마든지 노력하여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14. 용서도 ‘말의 용서’가 있고, ‘실제 용서’가 있다.

15. 사람이 개성으로 커야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개성의 미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16. 개성으로 책임분담을 못 해서 못 크는 자는 산을 밀고 하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 개성미가 없다.

17.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을 구원할 때는 구원하기 위해 각 개성들을 없애고 행하였다.

18.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 자들은 개성을 없애지 않고 개발해 주셨다. 고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인간 개발을 했다.

19. 하늘은 순종하지 않은 자는 개성을 잘라 버리고 개발시켜 버린다.

20. 주님과 대화를 하다가 물었다. “전능하신 신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더욱 알도록 순간 잠언 한 개를 주세요.” 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정신·혼·영이 나의 놀라운 잠언을 받기 위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줘도 못 받는다.” 하셨다.

21. 인간이 준비가 되어야 주님이 주신다.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도 된다. - 그때 그나마 이 잠언을 하나 깨닫고 썼다.

22. 형제는 애인을 하고 싶어도 애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신앙의 애인은 할 수 있다. 기독교도 모두 형제이지만, 성약 신부 역사로 와서 성자 앞에 다시 시대 신부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변화되면 주님의 신부가 된다.

23. 회개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24.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달아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께서 시대에 보낸 사명자, 곧 땅의 구원자를 쓰시고 그 시대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고, 그들이 못 한 것을 몸부림쳐 해 주는 것이다. 고로 땅의 구원자가 고통받는 만큼 그를 따르는 자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25. 시대에 성자가 육으로 쓰는 구원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땅의 구원자와 같이 책임을 하면서 믿고 따르고 행하면, 구원자도 그만큼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는 자들도 고통의 십자가를 안 지게 된다.

26. 따르는 자들이 걱정시키고 자기 책임을 못 하면, 구원자는 그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 주면서 그가 못 한 것을 해 줌으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 만일 구원자가 그를 살릴 마음이 없다면 그냥 놔두는데,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해결해야 된다.

27. 말씀을 뜨끔하게 들으려면, 자기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적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뜨끔하게 충격적으로 받게 된다.

28. 나는 듣는 자들의 수준으로 말씀을 받지 않았다. 고로 듣는 자도 차원을 높여서 들어야 된다. 그래야 말씀을 받은 자의 위치와 그 감동과 감격의 수준으로 들려서 육이 뜨끔하게 깨닫고 실천하여 영이 확 변화된다.

29. 자기 수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치 어린나무 크듯이 3년, 10년, 20년에 걸쳐 답답하게 크다. 제대로 못 크면 영의 키가 자라지 않아 난쟁이가 된다.

30.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확 성장했다. 계속 시대 말씀을 듣고 성령집회에 참여하며 사명자와 교통한 자다. 그가 3개월 됐을 때도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끝까지 관리하니 뒤집어지고, 땅도 하늘도 본체도 분체도 깨닫고 본체 분체와 일체 되었다. 6개월 만에 10년, 20년 된 나무같이 큰 것이다.

31. 육적 본체의 사랑의 문을 통해 영적 성자의 사랑을 받으러 들어가서 성자와 사랑 일체 되어 날마다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된다.

32. 육적 성자 본체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영적 성자 본체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깊이 들어가서 본체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

33. 육계에서 성자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과 정신이 주님과 일체 되면, 꿈에서도 주님이 상징적으로 1대1 대상체로 나타나 사랑해 주신다.

<2012년 8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마음 세계는 바람 세계다.

2. 마음 세계는 끌려다니는 세계다.

3. 혼적 세계는 끌고 다니는 세계다.

4. 마음 세계는 변화무쌍하다.

5. 마음 세계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믿을 수 없는 불안한 세계다.

6. 혼적 단계만 들어가도 안전하다.

7. 혼적 세계에서는 보고 판단하는 것이 차원이 높아서 어른 같다.

8. 육 - 마음 - 혼 - 영의 세계다.

9. 육은 1차원, 마음은 2차원, 혼은 3차원, 영은 4차원 단계다.

10. ‘육’은 세상에 붙어살고, ‘마음’도 세상에서 육이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 산다. ‘혼’은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육이 마음먹고 행해도 따라가지 않고, 저울에 달아 보고 자로 재 보고 판단하고 행한다. 고로 혼적 단계에서는 살아야 된다.

11. 혼적 단계에서 살아도 주님과 통할 수 있다. 육적 마음 세계는 차원이 낮아서 주님과 안 통한다.

12. 마음 단계는 육신 쓰고 육에 속해 살기에 변화무쌍하다. 육신이 보고 듣고 접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간다. 육신이 또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접하면 마음의 감지기는 또 달라져 생각을 달리한다.

13. 마음 세계는 육이 보고 듣고 접하는 대로 영향을 받는 단계이고, 혼적 단계는 육에게 “먹어 보아라. 맛이 어때?” 하고 확인하고 행하는 단계다. 마음은 걸 단계요, 혼은 속 단계다.

14. 매일 기도하고 혼적 단계에서는 살아야 된다. 이 단계가 주님과 통하는 단계다.

15. 육적 단계를 시간으로 표현한다면 새벽 5~6시 정도 되고, 마음 단계는 새벽 4시 정도 되고, 혼적 단계는 새벽 2~3시 정도 되고, 영적 단계는 새벽 1시 정도 된다.

16. 마음대로 사는 자는 마음 차원에서 사는 자다.

17. 주님과 마음으로 교통하며 사는 자는 혼적 차원에서 사는 자다. 혼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18. 영적 차원에서 사는 자는 자기 육과 마음과 혼을 지배하고 사는 자다.
19. 혼적 차원에 들어가야 자기 모습이 보인다.
20. 혼적 세계는 육계가 아니다. 영계에 속한다.
21. 마음 세계는 육계에 속해 있다.
22. 예술가의 최고 단계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혼적으로 정신일도 하고 선조의 맥을 끊지 않고 하는 단계다.
23. 도자기를 만들기 전 흙덩이가 <마음 단계>이고, 도자를 만들어 초벌구이를 한 상태가 <혼적 단계>이며, 재벌구이를 한 상태가 <영적 단계>다. 혼적 단계만 들어가도 형체가 잡히니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24. <육적 단계>는 건물을 사려고 눈으로 본 단계이고, <마음 단계>는 구두 계약 단계이고, <혼적 단계>는 계약금을 준 단계이고, <영적 단계>는 중도금을 준 단계다. 계약금을 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고로 적어도 혼적 단계에서만 살아도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25. 마음 단계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변하는 단계다.
26. 변화무쌍한 마음이다. 마음은 마치 감지기 같아서 듣고 보는 대로 그대로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누가 거짓을 참이라고 하면 참으로 생각한다. 이같이 마음은 말하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좌우된다. 고로 보고 들었어도 생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 단계는 혼적 단계에서 보고 판단해야 된다. 혼체는 영급이라서 겉도 보고 속도 본다.
27. 혼체는 육과 마음, 영 사이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28. 혼적 단계에서 살려면, 매일 근신하고 자기를 지키고 기도하며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는 마음 세계의 주관권을 벗어난 삶이다.
29. <마음의 삶>은 시켜야 하는 급이고, <혼의 삶>은 자신이 하는 정도의 삶이다.
30. 혼의 세계에서는 혼체가 육도 보고, 마음도 보고, 생각도 보고, 영도 본다.
31. <마음 단계>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단계이고, <생각 단계>는 이리저리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는 단계다. <혼 단계>는 혼체가 보고 느끼고 그 속을 보고서 판단한 것을 자기 마음과 생각에 전달하는 단계다.
32. 육체, 혼체, 영체다.
33. <영>은 왕이고, <혼>은 신하이고, <육>은 백성과 같다.

<2012년 9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인간은 '정신'으로 살아간다. 인간의 육체에서 마음·정신·생각인 혼이 빠져나가면 무용지물이다.
2. 정신은 뇌에서만 작동된다.
3. 정신이 뇌에서만 작동되지 않고 외부 다른 세계에서 운영된다면, 뇌에 이상이 있어도 육체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

서 받는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정신은 뇌에서만 작동되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생기면, 육체도 그것으로 끝난다. 뇌에 이상이 없어야 하나님과 주님이 역사하시거나 자기 영이 활동하면, 정신을 통해 얻을 것을 얻게 된다.

4. 인간 자체의 뇌 작용은 그 강도가 약하다. 신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보다 수만 배 강하고 확실하다. 고로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이 신의 정신과 일체 된다면, 확실한 마음·정신·생각으로 작용될 수 있다.

5. 인간 자체의 마음·정신·생각은 막연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6. 인간은 정신이 잘못되면 정신병자 된다.

7. 하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세상을 상대로 정신이 작용하는 자들은 모두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들이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정신·생각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8.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가 된다.

9. 인간의 육적 정신은 짐승보다 조금 나은 정도다. 고로 육적 정신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별로다. 영적 정신, 구원자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10. 영적인 흔적 세계에 들어가서 생각하면, 차원 낮은 육적 세계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또렷하고 확실하고 수준이 높다.

11. 육의 정신은 육에 속해 있기에 차원도 낮고 흐리다. 흔적 세계에 들어가면 정신이 한 차원 높아져서 다르다.

12. 기도하고 깊은 영계로 들어가면 정신이 맑고 투명하고 확실하다.

13. 성자 주님께 “인간의 정신을 너무 강도가 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만큼 강도가 강해진다. 사람의 힘이 약하다고만 하지 말아라. 가벼운 것만 들지 말고 무거운 것도 자꾸 들어 보면 자기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깊이 생각하고 자꾸 반복해서 차원 높여 행하면 정신이 강하게 된다. 정신은 집중해야 강해지고, 실천해야 강해지고, 눈으로 봐야 강해지고, 신과 일체 돼야 강해진다.” 하셨다.

14. 눈으로 봐야 정신이 더 강하게 집중된다. 또한 확실한 것을 들어야 정신이 더 집중되고 확실해진다.

15. 정신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집중된다. 생각만 하는 정신은 약하다. 눈으로 보고 실천하는 정신이어야 강해지고 또렷해진다.

16. 차도 속력을 안 내고 슬슬 가면 약한 것 같다. 그러나 속력을 내고 달리면 강하다. 정신도 속력을 내야 된다.

17. 어떤 목적을 놓고 강하게 집중해서 행해야 정신이 흐리멍덩한 상태를 벗어나 강해진다.

18. 정신도 생각에 따라 하급 차원 정신, 중급 차원 정신, 상급 차원 정신이 있고, 또 그 안에서도 수십 층의 차원이 있다.

19. 어떤 목적을 놓고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보화를 발견했을 때는 집중하기 때문에 정신이 신과 같은 정신으로 뒤바뀔 것이다.

20. 칼과 모든 연장은 예리하게 갈수록 강도가 강해진다. 마음·정신·생각도 예리하게 만들수록 확실해진다.

21. 성자 주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정신이 교통하며 상대성 작용을 해야 정신이 강해지고 또렷해진다.

22.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적 단계에 도달했을 때, 육적 상태에서 제일 높은 단계에 이른 것이다.
23. 혼적 상태에 있을 때 혼의 영계도 보이고 내면세계까지 알게 된다.
24. 사람이 나이 먹어서 뇌가 늙으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 정신이 흐려진다. 그런데 그 전에 젊을 때 뇌의 기능이 좋고 정신의 강도가 좋은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안 쓰고 사니, 그 기능이 약해져서 흐릿한 정신으로 살아간다.
25. 뇌는 피곤하면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26. 새벽에 정신이 가장 또렷하다.
27. 보고, 듣고, 먹어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집중되어 강해진다.
28.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 뇌의 기능이 약해져서 마음·정신·생각이 약해진다.
29. 뛰고 달리고 활동해야 자극을 받아 뇌 기능이 좋아져서 마음·정신·생각이라는 화면이 또렷해진다.
30. 보고 듣고 행하는 자들의 마음과 정신은 집중되어 있고, 그 화면이 또렷하고 선명하다.
31. 마음과 정신은 생각할수록, 자극할수록, 집중할수록 또렷해진다.
32. 나이 먹은 자들은 말할 때 그때뿐이다. 뇌세포가 죽어서 혼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시대는 종교성이 높아서 정신도 행동도 혼미하다.
33. 젊은이들은 마음과 정신이 예민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고로 자주 교육하고 보여 주고 듣게 하여 행하게 하여라.
34. 목적이 있을수록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집중된다.
35. 정신을 차리게 해 주고 올바르게 끌고 가야 그 주관권을 벗어나게 한다.
36.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를 바로 이해하고 알게 된다.
37. 상대의 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속 깊은 비밀을 알게 된다.
38. 육신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 이상이 없어도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육은 무용지물이다.
39. 정신은 차의 엔진과 같다. 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골골하면 그 차는 골골거리며 끌고 다녀야 된다.
40. 인간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하다.
41. 인간은 생각해 봤자 인간을 못 벗어난다.
42. 전능자를 생각하고, 구원하는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와 교통하며 생명 차원의 정신으로 뒤바꾸고 살아야 된다.
43. 보고, 듣고, 만지고, 접하고, 행함으로 정신이 예민해지고 살아난다.
44. 영적으로 보고 듣고 행하면, 정신이 차원 높이 살아난다.

45. 정신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 정신의 차원도 좌우된다.

<2012년 9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라.

2.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야 너를 쫓는 ‘시간’이라는 사탄을 처리하여 승리한다. / 꿈 계시다. 내 앞에 건장한 체구의 아주 덩치가 큰 남자가 가고 있었다. 나는 그 뒤를 쫓아갔다. 그 남자는 자기 품속에서 1m나 되는 칼을 빼 내더니, 어느 한 집의 한 방으로 들어가서 잠자는 사람을 칼로 찌르고 나왔다. 그리고 남자는 그 집에서 나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옆집 지붕으로 올라가니, 그는 나를 따라 지붕으로 기어 올라왔다. 이때 내가 위에서 그의 칼을 뺐었다. 그러니 그는 당황하며 더 이상 나를 못 쫓아오고 도망쳐 사라졌다. / 잠에서 깨보니 자정이 조금 지난 12시 14분이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시간이라는 칼자루를 잡아라. 사탄들이 시간의 칼로 새벽에도 잠을 자는 자들을 찌르고 다닌다. 고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잔다.” 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썼다.

3. 시간을 뺏는 사탄이다. 시간 뺏기면 실패한다.

4. 꿈에서 본 건장한 남자는 사탄이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은 ‘시간의 칼’이었다. 시간을 뺏는 사탄의 칼은 무시무시하게 크고 예리했고, 사탄은 매우 건장했다. 사탄은 그 칼로 새벽에 잠자는 자들의 방을 찾아가 이불에 덮여진 채로 쿡 찌시고 다녔다. 또한 잠을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 주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일어나 기도함으로 ‘말씀의 검’과 ‘기도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다스려라!

5. 자기가 기도하며 ‘성자의 검’과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면, 기도의 말의 검이 날아가 사탄에게 꽂힌다. 안 보여도 그런 줄 알고 기도하여라!

6.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자는 사탄의 잠의 검에 찔려서 못 일어나는 것이다.

7. 사탄의 검을 뺏어라.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자는 사탄의 검을 뺏은 자다.

8. 사탄이 나를 찌르러 쫓아오는데 내가 지붕 위로 올라가니, 사탄도 나를 쫓아와 지붕으로 올라왔다. 사탄이 칼을 지붕에 얹어 놓고 올라오는 순간 내가 그 칼을 뺐었다. 사탄은 칼을 뺏기고 도망갔다. - 순간 잠을 깨 보니 12시 15분이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너무 일찍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10분 동안 눈만 깜빡거렸다. 그러나 시간의 칼자루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벌떡 일어난 것이 사탄의 검을 뺏은 것이었다. - 시간을 볼 것 없이 잠에서 깨지면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사탄은 정한 새벽 기도 시간을 알고 미리 검으로 찌르며 기도 못하게 방해한다. 고로 어느 때 주님은 정한 시간보다 미리 깨우신다. 이는 비밀이다. 사탄은 이 시간을 모르니, 이때 일어나면 사탄의 검을 뺏게 된다. 어느 때는 잠을 자다가 정한 새벽 기도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면, “너무 일찍 깼네.” 하고 잔다 아니다. 그때 주님이 깨우신 것이다. 정한 시간에는 꼭 사탄이 와서 방해하여 못 일어나니까 주님이 미리 깨우기도 하신다. - 어느 때는 정한 시간보다 늦게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9. 시간을 뺏기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못 한다.

10. 만사의 모든 것이 힘든 것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다. 쉬운 것이 어디 있느냐.

11. 시간을 뺏기면 고통 시간으로 들어간다.

12. 하나님 계획하신 시간 안에 하면 고통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13.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시간은 고통 시간이다.

14.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라.
15. 자기 때를 놓치면 얻을 것을 놓치고 고생만 한다.
16. '주와 함께'다! 그때가 하늘의 때이며 하늘 시간이다.
17. 개인도 새벽에 시간을 놓치면 그날은 그대로 끝나 버린다.
18. 시간마다 계획한 것이 있는데 시간을 놓치면 그 시간에 할 것은 못 하고 끝난다.
19. 기계를 조립하듯이, 시간을 잡고 행하여라.
20. 시간 뺏기면 주 뺏긴다.
21. 시간은 주님이다.
22. 성자는 시간을 쓰고 오신다.
23. 전(前) 시간이 벗어나면 다음 시간도 벗어난다.
2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성자도 기쁘게 해 드리지 못한다.
25. 가나안 복지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모든 사건을 놓고 가나안 복지와 같은 이상적인 삶은 '절대 믿음'으로 해야 들어가 누린다는 말이다.

<2012년 9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도자가 잘못 하면 따르는 자들이 고생한다.
2.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3.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이다. 뜨거운 것, 추운 것 등으로 이유를 대면 못 한다.
4. 주님 말씀에 반만 순종하면 반만 유익하다.
5. 욕성에 끌려가지 말아라. 욕성으로 하는 것은 너 자신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6. 성자 본체는 영성이요, 성자 본체는 욕성이다. 성자 본체는 영성이요, 그가 보낸 자는 욕성이다. 끌고 가는 자는 영성이요, 끌려가는 자는 욕성이다.
7. 절대 욕성에 끌려가지 말아라.
8.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답안지가 나온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장단점이 나온다는 것이다.
9. 주가 시키신 일을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은근히 틀지 말아라.
10. 주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라. 주는 성자다.

11. 주가 시켜서 해 온 일인데 모르면 못 하게 틀게 된다.
12.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심정을 못 느낀다.
13. 좋은 것만 보고하고 모순은 보고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냐. 주는 고장 난 차를 알듯이 모순된 것을 다 아신다. 모두 고장 난 차 정비하듯 정비하자.
14. 고장 난 차는 신호등 앞에 서 있다. 시동이 안 걸려서 못 가고 있는데, 그때 뒤에 있던 차가 그 차를 들이받아서 대형사고가 났다. 고장 난 인생도 모두 고쳐라. 정비하자.
15. 제 시간에 떠나라. 뒤에 사탄이 쫓아온다.
16. 영이 둔하면 모른다. 기도하여라.
17. 주는 용서했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침범한다.
18. 자기는 모순은 주께 용서받아 놓고서, 왜 남은 용서하지 않느냐.
19.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왜 너는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 안 해 주는 것이 죄다.
20. '용서'와 '사랑'과 '금휼'이 주의 마음, 곧 성자의 마음이다.
21. 성자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성자를 제대로 깨닫는 자는 인생을 앞서간다.
22. 입으로는 '성자'라 하고, 마음으로는 '분체'라 한다. (비웃는 말)
23.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동'을 '서'라 하니, 깨닫지를 못한다.
24. 주와 심정일체 되어라. 주가 칭찬하면 너도 따라서 칭찬하고, 주가 가르치면 너도 따라서 가르쳐 주고, 주가 주면 너도 따라 주어라.
25. 조건 대가다. 조건을 세워야 다음 코스를 뛰게 한다.
26. 주는 은밀히 말씀하신다. 깨닫는 것은 자기 책임분담이다.
27. 섭리세계 모든 자들은 항상 주와 의논하며 하여라. 자기중심으로 하지 말아라.
28. 섭리세계 전체를 다 보아라. 왜 발바닥만 보느냐. 전체를 못 보니 자기 입장에서만 본다. 그 큰 몸도 보고, 얼굴도 보아라. 왜 발바닥만 보냐. 그 큰 몸도 보고 얼굴도 봐야지 않냐.
29. 주는 불꽃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지체들은 부분만 본다.
30. 주는 일을 맡기고 결과를 보신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주와 같이 하다가 점점 자기중심으로 돌아간다.
31. 한 사람씩 대할 때마다 먼저 주님이 그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말하여라. 그러기 전에 다른 말을 하면 실수한다.
32. 자기가 잘못된 자에게 용서를 구하여라. 주님의 마음에 빗대서 말하지 말아라.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33. 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좋아서 웃고 다닌다.

34. 심정의 세계다. 주의 심정을 풀어 드려야 주가 바로 다시 그와 함께 행하신다.

35. 주의 계시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으로 계속 행하니 주님이 그에게 일을 안 맡기신다.

36. 주를 빼 놓고 일하면 공적이 없다. 꼭 주와 같이 의논하고 그대로만 하여라.

37.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면서 행한다. 사명을 맡았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행해야 된다.

38. 오직 주만 생각하고 행하라. 주가 사랑하는 자들이 주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39. 자기 주관으로 옳다고 판단하여 행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으로 행하여라.

<2012년 9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은 자기가 뺏긴다. 고로 시간은 자기가 뺏어야 된다.

2. 시간은 순간 뺏고, 순간 뺏기게 된다.

3. 시간을 뺏으니, 만사에 주권을 쥐고 하게 된다.

4. 시간을 뺏기니 할 일이 없다.

5. 시간을 뺏기니 끌려간다.

6. 성자는 시간을 쓰고 오신다.

7. 시간을 뺏으면 사탄도 쳐다보기만 한다. 사탄도 시간을 쥐야 해하고 침범한다.

8. 시간을 뺏어야 자기가 처한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그곳의 주인이 된다.

9.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여 적과 싸울 때 시간적 표적을 일으켜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뺏으라는 것이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함께하게 하시어 사탄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시간을 뺏는 것이다.

10. 성자가 함께해야 시간을 뺏는다.

11. 성자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시간을 뺏는 것이다.

12. 새벽에도 성자가 함께할 때 일어나야 시간을 뺏는다. 못 일어나면 시간을 뺏긴 것이다.

13. 지도자가 시간 뺏기면 전체 교인들이 시간을 뺏어와 앉아 있어도 손해다.

14. 승객들이 다 일찍 차에 와서 기다리는데 운전수가 안 오면,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다 뺏긴다.

15. 만 명이 1분씩 기다리면 만 분이고, 만 명이 한 시간을 기다리면 만 시간이다. 만 시간이면 1250명 하루 동안 일한 만큼이니 얼마나 크냐. 돈으로 따지면 4580만 원이다. 지도자들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서 교인들을 이끌어

라.

16. 선생이 월명동에서 일할 때 내가 늦으면 일하는 자들이 다 못 한다고 생각하고, 먹지도 않고 잠을 안 자 가면서 행하여 마지막 날에 겨우 모든 일을 끝냈다.

17. 주는 단상에 와서 서 계신데도 늦느냐. 만왕의 왕이신 성자를 기다리게 하는 자다. 모두 시간을 지켜라. 안 고치면 그 분체가 성자의 대행자이니 개꼬리 자르듯 자른다. 꼬리가 길면 달히는 열차 문에 꼬리가 끼인 채 달려가게 되니 위험하다. 고로 자르게 된다.

18. 시간을 안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 영이 변화되지 않고 휴거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안 고치려느냐.

19. 전쟁터에서는 적에게 몸을 조금만 보여도 적이 발견하고 쏘 죽인다. 신앙에서도 사탄에게 흠을 조금만 보여도 사탄이 발견하고 그를 주관한다. 전체의 흠을 고쳐 흠이 보이지 않게 하여라.

20. ‘흠’은 영적으로 볼 때 암적인 병이다. 잘라내라.

21. 자기 성격을 자기가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다. ‘성자의 묵시’는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듯이, ‘성자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 자기를 알게 된다. 사탄은 약점을 가지고 그를 주관하고, 뱀 같은 사탄이 그를 감고 다닌다.

22.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재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신다.

23.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모두 자기 식이 된다. 성자의 생각으로 글씨에 점 하나까지 찍어 주듯 해야 된다.

24. 가령 큰 글씨의 가로 획과 세로 획은 지시해 주었는데, 점을 지시해 주지 않으면 점을 자기가 생각하는 위치에 찍어서 전체 글씨가 돌아간다. (그림) ‘곧’에 찍을 것, ‘곧’에다 찍고 좋아한다.)

25. 100%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서 무너뜨린다.

26. 설계사가 다 구상하고 설계해 주면, 건축하는 자는 설계도만 보고 집을 짓는 것이다.

27. ‘구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전해 주신다. 그것을 보고 행하여라.

<2012년 9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살았을 때 행하고, 잠 깬을 때 행하여라. (네가 잠에서 깬 때, 잠을 깨워 주신 성자가 네 옆에 서 있다.)

2. 잠자는 시간은 죽은 시간과 같다. 잠에서 깬을 때 산 것과 같다. 고로 잠에서 깬을 때 행해야지, 그때 못 행하면 또 잠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3. 행할수록 살아난다.

4. 기능을 하지 못한 것도 죽은 것이다.

5. 잠에서 깬어도 할 일을 못 하면 죽은 것이다.

6. 죄를 지어도 죽은 것이다.

7. 사망에 해당되는 행위는 죽은 행위다.

8. 성자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산 행위다.
9. 자기 '생각'과 '행위'가 자기를 죽이고 살린다.
10. 매일 자기를 살리는 생활을 하여라.
11. 미래가 중한 것이 아니고 현실이 중하다.
12. 현실을 살려야 미래도 산다.
13. 대화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14. 똑같은 일의 반복은 권태를 준다.
15. 일을 하되 방법을 달리 하면서 하면 지치지 않는다.
16. 새롭게 해야 차원이 높아진다.
17. 새로운 일은 새로운 희망이다.
18. 새로운 구상을 해야 삶이 지루하지 않고 기쁘다. 구상은 삼위일체다.
19. 깨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자 주님이 급히 계시하는 것을 받아 행한다.
20. 깨어 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마음·정신·생각이 성자 주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상태다.
21. 시간이 멀다하고 수시로 성자 주님과 통하며 확인해야 된다.
22. 급한 때는 초를 다투는 때도 있다.
23. 어떤 일은 기회의 시간이 20초다. 깨어 있는 자만이 20초의 기회를 얻고 행하여 천중의 운명을 좌우시키기도 한다.
24. 기회를 위해 1시간 동안 기도했다. 주님의 계시를 받는 기회의 시간은 20초였다. 180배 차이였다.
25. 번개처럼 행해야 된다.
26. 첫 번째 기회를 놓치니 두 번째에는 17분 만에, 세 번째에는 20초 만에 계시를 주셨다. 깨어있으니 행한 것이다.
27. 영적인 자만 비호(飛虎)같이 안 것을 행한다.
28. 미련하면 알려 줘도 못 행한다.
29.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맨 앞과 맨 끝 차이이다.
30.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차이는 머리와 꼬리 차이이다.
31.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32. 행한 자는 하늘에 올랐고, 행하지 못한 자는 땅에 붙어 다닌다.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명자가 아니면 알아도 지식에 불과하다.

2. 사명자는 성자 주님의 심정과 보낸 자의 심정을 알고 애달픈 사연을 깨닫는다. 그리고 혼과 영으로 성자와 보낸 자와 통한다.

3. 성자 주님의 깊고 높은 마음과 통할 자가 없으니 애달프다.

4. 성자 주님은 통하는 자가 있어야 그 마음을 털어 놓으신다. 보낸 자도 그러하다.

5. 계절과는 상관없는 고통이다. 고로 기도를 해 줘야 된다. 구원받을 자들이 매일 자기 길만 가지 말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6. 겉 글만 보는 자는 속 일을 못 한다.

7. 묵시는 사명자에게만 준다.

8. 심정을 아는 자에게 사명이 간다.

9. 성자 본체와 그 분체의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만족한 사랑의 신부다.

10. 언제나 성자 본체와 분체의 대화의 대상이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11. 누구나 주의 심정을 알아야 제대로 행하게 되어 자기 소원도 풀게 된다.

12. 진실로 끝까지 하여라.

13.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의심하는 것인데, 이리저리 따져보고 재보다가 해가 넘어가 기회를 놓친다.

14. 성자 본체는 성자 본체 앞에서는 분체이지만, 구원받을 자들 앞에서는 본체다. 그러나 자기 무지와 자기 부족과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미련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잘못 판단하고 이리저리 재보며 시큰둥하다가 세월이 다 간 것이다.

15. 아는 자는 사생결단하고 따라 행한다.

16. 표상을 따라 하면 되는데, 지능이 낮은 자가 언제 배워서 하려고 하느냐. 따라서 하면 머리가 돌머리라도 하게 된다.

17. 지혜로운 자는 잘하는 자를 따라서 하고, 미련한 자는 배우고 깨닫고 다 인정하고 이리저리 다 확인한 후에 그제야 하려고 한다. 그때는 늦어서 못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18. 지혜로운 자는 행하면서 확인하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따라서 할 자를 보내 놓고 스스로 배우고 와서 확인하고 따라가려 한다. 확인하고 따라가니 옆에 있어도 천리나 떨어져서 따라간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비웃고, 희생의 조상 이삭이 손가락질하고, 기도의 야곱이 “너는 무릎 벗겨질까 봐 기도 안 하는 것이냐.” 하며 답답해하고, 꿈의 요셉이

“너는 꿈도 안 꾸냐?” 말하고, 지혜의 솔로몬이 “너는 아직도 내 잠언만 읽고 구시대에서 사느냐.” 한다.

19. 때가 와서 천둥번개 치며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질 때는 연못에 물 받으러 나가지 않고, 때가 지나 가뭄이 드니 물 빠진 연못에 물 받으러 나간다.

20. 사람이 미련해도 정도가 있게 미련해야 가뭄 때 접시 바닥의 물이라도 헛바닥으로 훑아서 먹게 된다.

21. 구원자가 와서 심정을 다 쏟으면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애달픈 사연 속에 외치는데, 구원받을 자들이 매일 제 갈 길만 가는구나. 놀고먹고 자다가 지켜서 힘 빠진 몸을 가지고 와서 그제야 어설프게 구원자를 대한다.

22. 구원자는 공의롭다. ‘이만큼 해 주면 본인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겠다.’ 판단하면 떠난다.

23. 구원자가 구원할 자는 세상에서 자기 한 사람이 아니다.

24. 어떤 사람은 구원해 놓으니 자기가 살고 놀던 데가 더 좋다고 하며 다시 급물 속에 들어가 떠내려가면서 만족한다. 구원자는 할 일 다 했다고 하며 미련 없이 떠난다.

25. 구원은 ‘주와 함께’다. ‘성자와 보낸 자와 자기와 함께’다.

26. 구원받지 못한 육체들은 자기 영혼의 고통과 그 비참함을 모른다. 육신이 죽으면 자기 혼체가 영체에게 흡수되는데, 그제야 그 고통과 비참함을 알게 된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27. 구원받지 못한 자의 혼체와 영체가 받을 영원한 고통을 보고 하나님도 머리를 내저으신다. 지옥은 실제로 안 가고 쳐다만 봐도 그 고통이 자기 영체에 와 닿아 직접 지옥 속에 가 있는 것과 같다.

28. 어떤 사람의 몸을 누가 칼로 회 치듯 하는 것을 본다면, 보는 자도 당하는 자와 같은 고통이 느껴질 것이다. 지옥도 마찬가지다. 지옥에 간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온다. 그곳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다.

29. 무기수들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30. 지옥도 1000년 후든, 10000년 후든, 100만 년 후든 언젠가 지옥형이 끝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희망으로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이 일부는 해소될 것이다.

31. 그러나 지옥은 무기형이다. 영원하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심판하여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과 행위로 인해, 자기 삶으로 인해 스스로 지옥에 간 것이다.

32.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다.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찾아가야 천국으로 간다.

33. ‘지옥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면, ‘천국 길’은 올라가는 길이다.

34.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체질이 되고, 길이 들고, 습관이 들면 지옥 가는 길보다 천국 가는 길이 훨씬 더 즐겁고 좋다.

<2012년 9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사랑의 여인이다.

2. 기도는 애인이다.

3. 기도는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
4. ‘깊은 기도’는 많은 여자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과 같다.
5. 기도는 불났을 때 불 끄는 물과 같다.
6. 환난 때는 기도하여라. 기도는 물과 같다.
7. 불났을 때는 물로 불을 끈다. 환난의 불은 기도의 물로 꺼야 된다.
8. 기도 시간은 소경이 눈을 뜨고 보면서 걸어가는 시간과 같다.
9. 기도 시간은 소경이 눈을 뜨고 보고 싶은 것을 쳐다보는 시간과 같다.
10. 성자가 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그의 심정을 모르면, 주님은 다음 계획을 안 하신다.
11. 성자 주님은 우리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심정을 몰라주면, 하찮은 인간에게 빌면서까지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성자의 마음을 몰라주면 죄가 되어 사망으로 가니, 성자는 기필코 살리려고 하신다. 이를 진실로 깨달아라!
12. 성자의 심정을 모르고 행한 자는 행해도 공적이 없다.
13. 자기 심정 아파가며 성자의 심정을 알 때까지 고통을 받는다.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책임을 다하여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14. 성자의 심정을 모르는 자도 자기 책임을 못 한 자로서 공적이 없다.
15. 주님은 스스로 성자의 심정을 알아주고 행하는 자를 크게 보고 대하신다.
16. 사탄의 주관, 자기 주관, 사람들의 주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을 받고 살도록 기도하여라.
17.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을 받게 된다.
18. 기도하면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자들도 기도하는 대로 사탄과 자기와 사람들의 주관을 받지 않고 성삼위의 주관을 받게 된다.
19. 자기 능력으로 못 하는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니 쉽게 생각하고 진실로 기도만 해 주어라.
20.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기다리신다. 기도를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21. 걱정되는 것도 대화하면 그냥 풀어진다.
22. 성자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면 걱정되는 것이 풀어진다.
23. 힘들어도 기도하여 성자 주님을 만나서 풀어라.
24. 만나야 해결된다.

25. 풀어야 해결된다.

26. <힘>도 <기>도 ‘정신’에서 온다. ‘문제’란, 짐이다. 짐을 풀면 짐이 없어지니 쉬워진다.

27. 서로 짐을 없애주는 것이다.

28. 성자 주님의 짐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없애 주고, 우리의 짐은 성자 주님이 없애 주신다.

29. 시간의 칼자루를 잡아라! 정신의 칼자루를 잡아라! 그러면 승리한다.

<2012년 9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성장하면서 존재하다가 늙으면서 죽는다. 죽으니 허무하다.

2. 인생은 기나 짧으나 모두 허무하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욕은 결국 죽기 때문이다.

3. 영원히 존재하는 ‘구원받은 영’만이 허무하지 않다.

4. 지옥도 고통이 없다면 하나의 천국이다. 고통을 주기에 지옥이다.

5.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욕도 영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성자와 성령님을 믿고 사랑하며 삼위일체를 닮아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한 자의 영은 자동적으로 무(無)로, 즉 흑암으로 사라지게 돼 있다.

6.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한 생명을 태 안에 탄생하게 했다. 그 태 안의 생명이 자기를 탄생시킨 부모의 형체를 닮아 성장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태 안에서 사망으로 사라진다. 그 생명체의 형상이 부모를 닮아 온갖 지체가 잘 형성되고 발육되어야 세상에 나와서 살게 된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창조하여 탄생시킨 생명이 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살지 못함으로 삼위일체의 마음과 행실을 닮지 못하면 그 욕도 사망권에서 살게 되고, 그 영도 사망으로 사라진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어 인생들을 구원한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인생 욕도 영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낳는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욕과 영이 자기를 구원한 자의 마음과 행실을 닮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욕도 영도 사망 주관권으로 사라진다.

8. 창조주 삼위일체가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의 욕과 영을 창조하시고, 삼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삶으로 영을 변화시키라고 삼위의 말씀을 듣고 삼위를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그런데 그같이 살지 못한 욕과 영은 사망으로 사라진다.

9. 성자 주님께서 그 욕으로 삼은 자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 성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라고 구원해 놓았다. 그런데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 형상을 닮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한 욕과 혼과 영은 사망으로 간다.

10. 구원주가 와서 사망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자기 형상과 모양과 생각대로 살라고 했는데 구원주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대로 살지 못하면, 그 욕과 영은 구세주를 닮지 못함으로 자동적으로 사망으로 사라진다.

11. ‘의’로 형성되지 못한 영은 모두 흑암으로 사라진다.

12. ‘욕’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땅의 구원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된다. 그 형성된 영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렇지 못한 영은 모두 무(無)라고 하는 사망 흑암으로 사라진다.

13. 비유로 말하자. 밀알들을 땅에 뿌리면서, 밀이 되라고 덮고 거름하고 가꾸었다. 그런데 밀알이 점점 자라서 밀이 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무(無)로 사라진다. 밀이 된 것만 주인이 거둬 간다. / 이와 같이 하나님도 땅에 인간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살아라. 그래야 나의 나라 천국에 온다.” 하셨다. 삼위를 닮지 못한 자는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못하여 모두 무(無)로 사라진다.

14. 주인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모두 사과 열매를 맺으라고 물을 주고 퇴비하며 정성껏 가꾸었다. 사과나무가 자라서 사과 열매를 맺으니, 그 열매만 거둬들여 집으로 가지고 갔다. / 하나님도 그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라.” 하시며, 늘 말씀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영’만 천국으로 가고, 닮지 않은 ‘영’은 무(無)로 사라져 버린다. ‘무로 사라진다’ 함은 사망으로 간다 함이다.

15.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사랑해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면서, “평생 나를 닮아 살아라.” 했다. 닮으면 데리고 살고, 닮지 않으면 살다가 자동적으로 헤어지게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땅의 구원자도 그러하다.

16. 한 화가가 사람들을 모아 놓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모두 따라서 그리라고 했다. 자기를 따라서 그림을 그린 자만 남게 하고, 나머지는 사라지게 했다.

17.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혼체가 확실히 형성되지 못한 자는 꿈이 안 껴지고, 꿈을 껴도 흐릿하고 혼잡하다.

18. 자기 정신에 따라 자기 혼체가 형성된다. 정신이 확실하지 못하면 혼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마치 안개 같다.

19. 냉장고에 물을 넣어 놔도 냉장고의 온도가 약하면 얼음이 안 언다. 확실히 차가워야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서 그 형체가 분명하다. / 정신도 확실히 하고, 마음도 생각도 확실해야 꿈에 자기 혼체가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활동한다. 낮에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확실해야 그 날 마음·정신·생각이 육신을 쓰고 확실하게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몽롱하고 흐릿하게 살게 된다.

20. 마음·정신·생각에 따라 혼체도 형성되고, 그에 따라 영체도 확실히 형성되기도 하고 흐릿하게 형성되기도 한다.

21.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확실히 사랑하며, 확실히 행하면서 살아야 육도 영도 확실하게 형성된다.

22. 온도가 확실히 차가워야 얼음이 강도 있게 얼게 된다.

23. 마음의 강도, 정신의 강도, 생각의 강도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말씀대로 사랑하며 확실하게 주를 따라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육도 영도 확실히 변화되지 못하여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영계에서 그 영의 형체를 보면 형성되다가 만 영들이 90%나 된다. 미완성된 집과 같다. 미완성 구원이다.

25. 육도 영도 그 형체대로 심판을 받는다.

26. 사람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못하듯이, 시간을 멈추지 못한다. 고로 시간을 따라서 할 일을 하며 시간을 따라가야 한다.

27. 좋은 시간은 좋은 데 쓰고, 부스러기 시간을 가지고 부스러기 일을 하여라.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의 마음·정신·생각을 닮아라. 그러면 육도 변화되고, 영도 하늘에 속한 영으로 형성된다.

2. 구세주의 마음·정신·생각·성품·행동을 닮아 살아라. 그래야 육도 영도 하늘의 형체로 덧입고 변화되어 육은 하늘의 사람이 되어 살고, 영은 하늘나라의 영이 되어 구원받고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 마음·정신·생각의 상태에 따라 육도 영도 그 형체가 형성된다.
4. 마음·정신·생각이 결심하고 운동하니, 젓가락같이 약한 몸이 건강하게 형체가 뒤바뀌었다. / 이와 같이 마음·정신·생각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의를 위해 살면 그 영의 형체가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온전히 변화된다.
5. 냉장고의 온도에 따라 물이 찬물이 되고, 얼음이 되고, 미지근한 물이 된다. 이와 같이 마음·정신·생각의 강도에 따라 자기 육도 영도 하늘에 속한 자로 형성되거나, 사망에 속한 자로 형성된다.
6. 깊이 기도하고 마음·정신·생각을 일도하면 생시에도 꿈에도 자기 혼체가 확실하게 보인다. 혼체는 육계에서는 자기 육체를 쓰고 나타나고, 영계에서는 육의 형체를 쓴 혼체로 나타난다. 이때 육이 혼체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혼체가 영체로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7. 생시에 마음·정신·생각이 또렷하여 뇌에 확실하게 기억된 것은 꿈에 혼체로 봐도 또렷하게 보인다.
8. 깊이 기도하여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서 혼체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 꿈에 봐도 생시같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안 보이는 것은 육체가 혼체로 변화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영체도 변화된 몸이라서 그 육체와는 다르다. 육체와 혼체의 행위에 따라서 의롭게 산 자의 영체는 더 빛나기도 하고, 악하게 살거나 육적으로 산 자의 영체는 그 모습이 흉하여 잘 몰라보기도 한다.
9. 생시에 자기가 늘 보고 접하면서 잘 아는 사람이라면, 꿈에 그 혼체나 영체를 봐도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다.
10. 지옥, 무저갱, 음부에 가서 거기에서 사는 영들을 자세히 보면, 고통을 받아서 얼굴이 변형되어 있어도 누구의 영인지 알아본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형상과 모양과 생각과 행실을 닮아 삼위를 사랑하며 살라고 목적을 두고 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주의 형상과 모양을 닮지 않은 자는 육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사라지고, 그 영도 사망권으로 사라진다. 삼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의 육만 생명권에서 살게 하시고, 그 영만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
12.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도 먼저는 삼위의 형상과 모양과 성품과 행실을 닮은 다음에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성자와 함께 “나를 닮아라.” 하며 시대 말씀을 주며 사랑해 준다. 그런데도 닮지 않은 자는 그 육신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끝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살다가 흑암의 세계로 사라진다.
13. 창조자는 자기를 닮은 자만 취하신다.
14. 구세주도 자기를 닮은 자만 다스리고 주관한다.
15. ‘나나리’라는 벌은 새끼를 까 놓고 낳아서 죽을 때까지 자기를 닮으라고 안아 주고, 여름에는 날개로 온종일 부채질을 해 준다. 그런데도 자기와 모양이 안 닮은 벌은 버리고, 닮은 벌만 데리고 가서 산다.

* 이 말씀을 받는 날 새벽에 성자 주님은 “나를 닮아라.” 하시며 두 가지를 깨우쳐 계시해 주셨다. “창조주와 같이 너도 너를 닮은 자들만 다스려라. 안 닮은 자들은 제 발로 기어 나간다.” 하셨다.

16. 누구든지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근본 창조자를 닮아야 근본자가 제일 좋아하신다. 제일 많이 닮은 자를 제일 좋아하신다.
17. 닮아야 통한다. 안 닮으면 안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까이하지 못하게 된다.
18.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구원자의 마음·정신·생각·행위를 닮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배척하고 불신하고 악평한다.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구원하신다. 고로 구원자를 닮은 자만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19. 모든 존재 세계는 닮은 대로 모여 산다. 초목들도 활엽수는 활엽수대로 모여 살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모여 산다. 모래는 모래끼리 모여 살고, 자갈은 자갈끼리 모여 살고, 강돌은 강돌끼리 모여 산다. 물은 물끼리 모여 살고, 땅은 땅끼리 모여 존재한다. 사람의 육신 세계도, 혼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각자 차원대로 모여 산다.
20. 같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구원을 높은 차원으로 받든지, 낮은 차원으로 받든지, 자기 행위와 차원대로 자기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가서 영원히 존재한다.
21. 삼위의 마음·정신·생각·행실·모양·형상을 닮은 대로 삼위와 가까이에서, 혹은 멀리에서 살게 된다. 삼위를 덜 닮은 자들은 육이 세상에 있을 때 그만큼 행하지 못했으니, 그 영이 천국 주관권 세계에 가더라도 삼위와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된다. 닮은 대로 통하고, 닮은 대로 접촉하고, 닮은 대로 가까이한다.
22. ‘천국’ 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지구에서 살더라도 각자 수준과 차원에 따라 수백만 차원으로 사는 위치가 다르다. 천국도 그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이다.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각자의 삶이 또 다르다. 자기가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고, 더 배우고, 더 알고, 더 행하는 만큼 자기 차원이 달라진다.
23. 마음·정신·생각을 잠재우지 말아라. 고로 혼체를 깨워서 살게 하여라. 그러면 몸의 신경도 감각도 굳어지거나 죽지 않는다.
24. 뇌신경은 마음·정신·생각으로 감각을 더 예리하게 하기도 하고, 잠재워 둔감하게 하기도 한다. 마음·정신·생각이 살아야면 혼체가 살고, 영체가 살고, 육체의 감각도 더욱 살아서 존재하게 된다.
25. 뇌신경은 우측과 좌측으로 온몸에 내려와 배선되어 있다. 고로 풍을 맞아 뇌에 이상이 생기면 한쪽이 마비된다.
26. 우측 뇌신경과 좌측 뇌신경 두 개가 몸에 내려와서 개성대로 둘이 하나 되어 느끼게 한다. 이는 마이너스 신경과 플러스 신경이다.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 둘이 하나 되어서 전기가 들어와 불이 켜지듯이, 뇌의 두 신경이 하나 되어서 느끼게 한다. / 이와 같이 인간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두 가지로 존재하며 하나 되어 느끼고 깨닫고 행하면서 산다.
27. 인간 자체로는 혼적 생각과 영적 생각이 하나 되어 느끼고 깨닫고 살게 된다.
28. 육체와 혼체가 하나 되어 느끼며 살고, 혼체와 영체와 하나 되어 느끼며 산다.
29. 모든 존재 세계는 상대성으로 존재하면서, 두 가지가 하나 되어 목적을 이루면서 산다.
30. 힘과 에너지는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31. 인간의 힘은 말로, 마음·정신·생각으로, 영파로 전달된다.
32. 가령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려고 기도한다 하자. 그 기도의 말로 그 사람에게 힘이 전달된다. 상대가 이것을 안다면 더 힘을 받게 된다.

33. ‘말, 마음·정신·생각, 행위’로 힘이 전달되기도 하고, 힘이 빠지게 하기도 한다.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모두 지배하고 통치하여 악인들을 선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지?’ 하지 말아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야지, 왜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주느냐.
2. 자신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여 자기를 선하게 만들고 구원하는 것이다.
3.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해 줄 것을 해 주시고 도울 것을 도우신다.
4.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보신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를 창조해 주시고,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인간이 성삼위께 어떻게 하면서 사는지 날마다 쳐다보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스스로 성삼위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그래야 뜻이 이루어진다.
7. 시켜서 하는 인생은 ‘로봇 인생’이다.
8. 성삼위는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신다. 믿고 사랑하고 행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해야 된다.
9.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된다. 구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로 손이 안 닿는다.
10. 구시대는 이미 지나가서 구시대에서 물결친다. 새 시대는 새 시대 사람들이 파도치며 행한다.
11. 늙은 사람은 치아도 약하고, 힘도 없고, 의욕심도 없고, 호기심도 없어서 새로운 음식이 있어도 먹지를 못한다. 이와 같이 구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 새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새 역사 섭리인들만 새 시대 새 말씀을 먹고 취하고 다스리며 뜻을 이루며 간다.
12.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야 선의 주관권에서 자기 개성대로 자기를 만들게 된다.
13. 국가에서 땅을 주면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짓고 살라고 했다. 국가에서 땅도 주고 집도 다 알아서 만들어 주면,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만 만들기에 개성이 없다.
14. 하나님도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주신 후에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각자 자기 행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개성 있게 만들라고 하셨다.
15. 하나님은 개성대로 멘토링 해 주신다.

<2012년 9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성자 주님이 주신 것도 가치가 없다.
2.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싼 돌도 가치가 없다.

3. 사람도 사면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4. 가령, 값비싼 옥 작품이 있다 하자. 만든 모양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 줄 수가 없다. 옥 자체가 비싸기에 옥이 얼마나 좋은 옥인지를 알아야 한다.

5. 구원자도 생긴 것으로는 그 가치를 나타낼 수 없고, 그 가치를 보여 줄 수도 없다. 그 마음, 정신, 행실, 말씀, 구원의 차원, 영적인 것들을 알아야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숨겨진 가치를 알게 된다. 구시대 종교인들은 외모만 보고 구원주의 가치를 따지고 대했다.

6. 섭리사에서 귀하게 쓰이는 자들의 가치도 외모만으로는 그 가치를 다 보여 줄 수가 없다. 그 마음, 정신, 행실, 실력과 하나님과 성자로부터 받은 사명과 충성심으로 가치를 알 수 있다.

7. 초림 때 만왕의 왕이신 전능자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외모만 보고 그 가치를 따졌다. 고로 실족했다.

8. 가령 옥으로 말 형상의 작품을 만들었다 하자. 그 작품을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별로다. 멋지게 못 만들었다.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겠다.” 했다. 이에 작가가 말하기를 “그렇게 보여도 옥 값만 1억이 넘습니다. 아주 옥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모양이야 하나의 작품 형상이고, 어떤 옥으로 작품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했다. 그제야 사람들은 “보석의 가치를 몰랐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했다. / 이와 같이 모양만 봐서는 가치를 알 수 없다. ‘사람’도 모양의 가치, 마음 품성의 가치,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느냐에 따른 사명의 가치 등 ‘본질’을 알아야 그 가치를 알게 된다.

9. ‘반지’도 모양만 보고서 값을 따지지 않는다. 모양 값, 무게 값, 품질 값을 다 따진다. 금이 14k인지, 18k인지, 순금인지, 반지에 박은 보석이 사파이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또 보석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를 본다. 또한 반지를 세공한 값을 본다. 두루두루 다 봐야 반지의 제 가치를 알 수 있다. / ‘사람’도 모양만 보지 말고 마음, 성품, 행실, 삶을 봐야 하고, 하나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히 쓰시는지 그 사명을 보고, 어느 차원으로 살면서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다 봐야 제 가치를 알 수 있다.

10. 월명동의 바위들도 마찬가지로. 모양 값, 무게 값, 사연 값, 그리고 누구를 상징한 바위인지 모두 합쳐서 가치를 따진다.

11. ‘다이아몬드’는 깎고 다듬어 만들기 전, 알밤만 하게 두루뭉술하게 생겼어도 수십억이다. 모양이 없어도 가치가 엄청나다. / ‘사람’도 외모가 별로여도 그 마음·정신·행실이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되어 하늘 앞에 충신으로 인정받은 자는 그 값이 알밤만 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가졌다. 사람은 몸무게보다 인격의 무게와 지혜와 지식의 무게를 따지고, 그 육과 영이 누구를 닮았느냐를 따진다.

12. 키를 키우고, 얼굴을 작게 깎고, 허벅지와 장단지를 가늘게 만들고, 허리를 잘록하게 깎을 것 없다. 그냥 뒤도 가치가 있다. 하늘 앞에 충성하고,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며, 강의를 달인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청중에게 감동을 주며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있으면, 그는 대가치를 가진 자다.

13. 좋은 옥은 깎아서 어떤 모양의 작품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뒤도 제값이 나간다. 굳이 옥으로 말 형상을 만들고, 코끼리 형상을 안 만들어도 옥 자체만으로 제값이 나간다.

14. 섭리사에서 사람을 볼 때는 그 마음과 행실의 가치를 보고, 성자에게 쓰이는 가치를 보고, 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고 대하여라. 외모만 보고 대하는 자는 마치 옥 값을 모르고 그 모양만 보고 대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

15. ‘수석’은 얼마나 강한 돌에, 어떤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사람’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에게 어떤 특성과 재능이 있는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다.

16. 지난날 섭리인들을 보아라. 겉모습을 보고 쳐다보며 “야~ 멋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상이다. 마리아 형상이다.” 하기도 하고, 혹은 “주님의 형상이다.” 하기도 했다. 모양과 형상은 그러했건만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약하고 온전치 못하여, 환난의 겨울이 지나니 마치 물을 먹어 푸석푸석해져 깨지는 석회석과 같이 깨져서 섭리사를 나갔다.

17. 월명동 야심작도 네 번이나 무너졌는데, 이때 약한 돌들은 모두 무너져 깨졌다. 다섯 번째에는 강한 돌들로만 세웠다. 고로 지금은 보석에 가까운 강한 돌들만 남아 있다.

18. <성자바위>는 쇠덩어리 같은 강한 질의 바위다. 모두 성자바위같이 마음과 행실이 강하고 무거운 자들이 되고, 성자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라고 기도한다.

19. 돌이 석회석이면 강하게 못 만든다. 사람도 석회석 같은 마음과 행실로는 멋진 인생으로 못 만든다. 기도하고 행하면 석회석 같은 마음도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어진다.

20. 사람의 가치는 마음·정신·생각·행실 값이고, 그 영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고로 어느 급에서 살고 있는 영인지, 성자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21. ‘사망으로 가는 영’과 ‘사망권 속에서 사는 육’은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짐승과 같이 무가치한 인생이다.

<2012년 9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선지자가 아니라서 선지자에 대해 모르고, 왕이 아니라서 왕에 대해 모르고, 메시아가 아니라서 메시아에 대해 모르는 것이다.

2. 땅에서 메시아 사명을 해 봐야 땅의 메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3. 하늘에서 인간을 구하러 오는 구세주가 전능하신 신이라면, 그 대상은 땅에서 낳은 사람으로서 땅에서 뽑은 ‘사람이신 구세주’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신다.

4. 하늘에서 온 절대자 신은 ‘남자’라 칭하고, 땅에서 뽑은 자를 ‘여자’라 칭한다. 남자 격인 성자는 여자 격인 땅에서 뽑은 자를 통해 시대 구원 역사를 펴신다.

5.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그리하신다.

6. 하나님이 우상 종교에 관여하여 우상 종교에서 지도자를 뽑는 데 가담하시겠느냐? 그 상실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대로 버려두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7. 악인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백성이 악하든지,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8. 시대가 악하면 나라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9. 시대가 악하면 하늘이 보낸 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환난이 지나야 나타난다.

10.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늘의 천적이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

11.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자들은 그 육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도 심판을 면치 못하고, 그 육이 죽어서도 그 영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

12.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선한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히 용서하지 않으시고 형벌하신다.
13. ‘의인’도 악인에게 괴롭힘을 받은 때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의 정한 때까지 고통을 받고, 생명권으로 나온다. ‘악인’도 의인을 괴롭힌 때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의 정한 때까지 고통을 주고, 사망권 멸망으로 들어간다.
14.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의인과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버린다.
15. 모세 때도, 선지자 때도, 예수님 때도, 이 시대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그 시대에 보낸 자에게 시대의 상황을 고하게 하여 악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6.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17. 하나님은 구원자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심판의 말’이 되게 하기도 하시어 악인들을 멸하신다. 그 육신은 멸정해도 그 영은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18.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따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했다. 고로 사탄 루시퍼로 변질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됐다.
19.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퍼실 때,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가면서 점점 변질되어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은 스스로 심판받고, 루시퍼나 가룟 유다나 사울 왕같이 멸망으로 갔다.
20. 멸망으로 간 영들은 복직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결정되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21. 한번 ‘선(善)’에서 벗어나 멸망으로 가면, 다시 ‘선(善)’에 오르기가 아주 어렵다. 고로 ‘선(善)’에 있을 때, 고통을 받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의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구세주도 그 편이 되어 돕는다. 멸망으로 가면 악을 행하니 돕지 않는다.
22. 의인들이 악한 자들에게서 고통을 받는 기간에 고통만 받지 말고 기도하여라! 의인의 기도로 악인의 운명이 좌우된다.
23. 의인은 의롭게, 악인은 악하게 행하는 때가 있다.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다. 하나님은 이 때가 끝나면 심판하신다.
24. 악인은 의인을 괴롭히지만, 의인에게는 의로 인하여 악인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고로 의인이 기도하면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25. 악인은 악한 권세, 의인은 의로운 권세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어 악인과 의인이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하신다.
26. 하나님과 성자를 배신한 자가 누구냐. 그는 곧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불신한 자요, 그를 통해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한 자들이다.
27. 배신자와 불신자는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다. 복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배신당한 자만이 배신으로 인한 그 고통을 안다. 배신당하면, 하나님도 성자도 성자의 육도 그 고통이 너무도 크다. 겪어 본 자는 안다. 그로 인해 배신자의 영은 그 혼과 함께 불바다 세계 등 각종 지옥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정한 때까지 연속 고통을 받게 된다.
28. 이 시대 보낸 자를 배신하고 섭리사에 고통을 주고 갖은 악을 행한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았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영이 짐승이 되어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

29. '지옥의 고통'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그 '육'이 지상에서 살 때도 받고, 그 영으로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 악하게 산 자의 영은 그대로 악의 세계로 간다.

30. 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손실을 본 고로 악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여 성경에 나오듯이 시대마다 행하신다.

31.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에 보낸 사명자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 그 권세로 정한 때까지 자기를 해하는 자들을 치고 다스린다.

32. 사탄 마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의 육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한 뜻을 편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가 되어, 땅의 권세를 받은 자로 인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된다.

33. 악은 악으로 뭉쳐져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으려 악의 세계로 간다.

<2012년 9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준다. 의인들은 극악한 악으로 인하여 더 연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악은 때가 되면 그 행위대로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2. 사탄과 악한 자들로 인해 의인들은 더 연단을 받고 희게 되고 의롭게 된다. 고로 환난 때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라.

3. 사탄과 악한 자들은 의인들의 불의한 행위를 가지고 권세로 삼고 의인들을 멸하려 한다. 고로 항상 더 의롭게 행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자를 더욱 알고 사랑하여라.

4. 환난으로 인해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고, 정결하게 된다.

5. 겨울철 계절의 환난으로 인해 모기와 해충이 없어진다.

6. 환난 때 더욱 기도하여 의롭게 되어 순금같이 되어라. 그리고 환난 후에 하나님과 성자에게 쓰여져라.

7. 도가니에서 100% 연단된 금과 같이 환난의 도가니에서 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8. 악한 자의 힐문을 피하지 말고 대변하여 싸워라.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다. 의인의 하나님이시다.

9. 기도하여 능력으로 다스려라.

10. 악인들은 악인끼리 뭉쳐져서 의인을 치고, 의인들은 의인끼리 뭉쳐져 땅에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편다.

11.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인 신부로서 온전히 연단된 자가 되어라.

12. 온전한 성자의 대상은 시대 신부다.

13. 오직 성자의 사랑하는 대상이 된 영만 휴거된다.

14. <휴거의 비밀>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며, 하늘이 보낸 성자 분체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며 그가 전하는 진리를 절대 믿고 행하는 것이며, 악평자와 불신자를 믿음과 사랑으로 물리치고 성자를 절대 사랑하며 성자와 일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이 휴거된다.

15. 대 환난에 마지막으로 연단받고 휴거에 들어가게 된다.

16. 나무는 여름에 크면서 해충들이 생겨 해를 받는다. 그러다 겨울이 되면 추위의 환난을 받음으로 해충들이 다 죽는다. 그래야 나무는 다음 해에 또 성장하게 된다. 성자의 신부들도 그러하다.

17. 연단받고 단련돼야 금같이 빛이 난다.

18. 환난을 받음으로 연단되어야 선악이 분립되어 의인들이 자유롭게 된다.

19. 독립해야 자유롭게 된다.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를 연단시키고 만들며 자기 책임을 하면 독립하여 자유로운 몸이 된다.

20. 연단될수록 빛이 난다. 자기가 자기를 연단시켜라.

21. ‘몸’도 연단하여 건강하게 되듯이, ‘신앙’도 연단해야 건강하고 빛이 난다.

22. 신앙인의 합당한 환난과 연단은 마치 어떤 곳에 돌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파서 끌고 오는 과정과 같다. 그런 후에 빛이 나게 된다.

23. 1년 365일 자기를 끊임없이 정결하게, 의롭게, 가치 있게 최고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만들어야 된다.

24. 만들다 만 미완성 작품은 완전한 데 쓰이지 못한다. 성자 주님의 대상인 신앙의 신부도 그러하다.

25.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쓰여진다.

26. 먹는 것이 그리 중하나?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데 시간을 써라. 죽지 않을 만큼만 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어서 자기 육체와 혼체와 영체를 성자의 신부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써라.

27.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성자가 그 영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

28. 미완성 인생은 1000년이 돼도 만들어야 된다.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한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는 모순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남자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애인이 성품도 좋고, 너무 똑똑하고, 항상 잘한다.” 하며 자랑했다. 그러나 자랑만 한다고 해서 여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모순을 고쳐야 온전해져서 같이 누릴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둘이 있을 때는 “네 허물과 모순을 꼭 고쳐라.” 하며 지적했다.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2. 성자 주님도 신부가 되는 자들에게 이같이 하신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한다고 자랑하고, 둘이 있을 때는 “회개해라. 잘해라.” 하신다. 진정 사랑하기 때문이다.

3. 사랑하니 사람들에게는 자랑하고, 둘이 있는 때는 차원을 높이려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사랑의 채찍질을 한다.

4. 성자 주님은 신부들 중에서 잘못하여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어도 사람들에게는 연단시키는 중이라고 하신다. 사랑하니 타인에게 그 허물이 보이게 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 기간에 완전하게 만드신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성자 주님의 심정을 아는 자다.

5.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허물도 자랑삼아 말하지만, 미워하는 자는 흠을 까발려 말한다.
6.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허물을 깊이 덮어 주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7. 지혜로운 자는 무덤을 파지 않는다.
8. 사람의 모순·허물·혈기·거친 성격은 당장에는 안 보이나, 그 마음 길과 함께 걷다 보면 발에 돌들이 차이듯 보인다. 지혜로운 자는 밤잠을 안 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여 그 돌부리들을 파낸다.
9. 형제들끼리 살다가 허물과 모순을 발견해도 흠을 잡고 험담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발견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 앞에 그 형제의 욕과 혼과 영의 병든 것을 고쳐 준 자로 취급받게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실이다.
10. 자기 사랑하는 자의 모순·허물·거친 성격과 행동을 발견하면, 마치 자기가 늘 사용하는 길을 편안하게 다니도록 고치듯, 고쳐 주면 편하다.
11. 지적하고 혼내고 지시하면서 고쳐 주려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잘 대해 줌으로 마치 글을 교정하듯 맛있게 속 시원히 고쳐 주어라.
12. 어떤 왕이 자기 사랑하는 왕비에게 고쳐야 될 허물이 있는데도 사랑하니 분노하지 않고 늘 덮어 주며 백성들에게 왕비의 좋은 것만 자랑했다. 그리고 왕비에게는 따로 말하여 고치게 했다. 그러니 왕궁이 편안했다. 그러다가 신하 중에서 왕비의 허물을 안 자가 이를 은밀하게 왕에게 말했다. 왕은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여 신하가 왕비와 부딪히지 않도록 한길을 쫓아서 가게 해 주었다.
13. 개미가 해를 받게 큰소리로 울고 있어도 사람은 그 큰 귀로도 그 소리를 못 듣는다.
14. 성자 주님과 우리와도 그러하다. 우리가 아무리 크게 말해도 성자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한 것만 통하여 그 소리만 들으신다.
15. 어떤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사슴’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평생 사슴 한 마리 키우기를 소원했다. 소녀는 사슴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사슴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다. 그러다가 누가 돼지 새끼를 사다 주며 사슴이라고 했다. 소녀는 돼지를 사슴으로 알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사슴으로 인해 얻는 녹용은 얻지 못하고 살았다. / 모르고 만족하는 자는 마음 만족은 하지만 얻을 것은 못 얻는다. (→ 기독교인들과 무지한 자들) / 성자 주님과도 그러하고 자기 사랑하는 자와도 그러하다.
16. 자기 애인이나 형제나 그의 허물을 덮어 주고 살면 마음은 편하고 천국인데, 그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 덮어 주면서 고쳐 주면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는다.
17. 자기의 모순된 행위를 못 고치면, 성자 주님은 본래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계획하신다.
18. 천국에 갈 자라면, 꼭 자기의 모순된 행위를 고쳐야 된다. 못 고치면 천국에 가더라도 옆길로 빠져 급수가 낮은 세 계로 간다.
19. 무지하니 자기 모순을 권위로 쓴다. 주는 사랑하니 말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고 있는 그 길로 못 가게 트신다. 기도하여 깨닫고 고쳐라.
20. 사명을 받을수록 ‘권위’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행하여라. 사명을 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리는 것 같으나, 주님 생각이 아니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므로 곧 죄가 된다. 결눈질, 앞 눈질 하면서 항상 주와 통하고 주의 생각과 맞춰야 된다.

21.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어 행하면, 성자 분체는 이를 알고 성자와 함께 그 일을 거둬 간다.
22. 겸손, 순종, 위함, 덕을 세우는 말, 권면,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여라.
23. 사명을 크게 줄수록 성자도 그 분체도 늘 걱정한다.
24. 사명을 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하면, 결국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다.
25. 말을 할 때도 주께 허락받고 모순 없이 하여라. 자기중심으로 하면 사탄이 오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난다.
26.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지도해 줘야 된다.
27. 섭리사는 모두 성자와 그 분체가 개성으로 사명을 주었기에 누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모두 주의 신부다. 고로 겸손하게 덕을 세우는 말로 권면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아랫사람의 점수가윗사람에게로 가산 된다.
28.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는 자기에게 상처 준 자를 공경하지 않는다. 고로 늘 사람들에게 상처 받았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 성자도 그 분체도 그 소리를 듣는다.
29.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성자 주님이시다.
30.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31. 어제는 내가 큰일을 했다. 섭리인들의 허물과 죄를 성자 주님께 고하며 그 죄를 물어 책망할 것을 돌이키고 몸부림쳐 기도해 주었다. 이때 성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렇게 하여 죽을 자를 살리고, 인생들을 나의 신부로 만들고, 화평하게 했다.” 하셨다.
32. 매일 삶의 금메달을 따라! 주님이 네게 그것을 원한다고 하셨다.
33. 저마다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그 날의 금메달을 탄다.
34. 모순 없이 행한 것이 금메달을 탄 것이다.

<2012년 9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말’로 통하지만, 신은 ‘마음’으로 통한다.
2. 신이 볼 때 합당하게 행하면, 그 순간 신과 통하게 된다. 신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깨닫게 된다.
3. 사람들은 신의 마음을 깨달아도 모른다.
4.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마음으로 살면, 그때 신의 마음으로 신과 통하게 된다.
5. 신의 마음으로 살아야만 신과 통하게 된다.
6.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자와 안 통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신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도 그 차원으로 살면 통한다.

7. 사람들에게나, 전능자 하나님께나, 성자 주님께나 진정한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최고로 잘 통한다.
8. 자기가 형제 용서와 하나님 사랑과 성자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잘 통한다.
9. 누구나 한 달 내내 욱하고 혈기를 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는 천사같이 지내다가도 어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욱하고 혈기를 내며 말하고 행하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씩 지옥 고통도 받게 된다.
10. 자기에게 욱하는 마음과 혈기와 분노가 있을 때 분노를 폭발시키면 참는 것으로 인한 화는 안 받는다. 그러나 참지 않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는다.
11. 화내고 혈기 내고 욱하여 말하고 행하면, 사탄이 개입한 연고로 성령님은 바로 떠나신다.
12. 화내면 성령님은 떠나간다.
13. 사람은 모두가 자기에게 행한 대로 상대를 대한다. 이는 심리적 조건 반응의 법칙이다.
14. 상대가 잘 대해 주면 자기도 그를 잘 대해 준다.
15. 어떤 사람이 호랑이와 치타를 좋아하니, 그 성격이 다루기 까다로워도 지혜롭게 다루며 잘 기른다.
16. 어떤 사람이 호랑이와 치타를 좋아해도 물릴까 봐 못 기르고, 사슴과 토끼와 양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순하여 부담이 안 되니까 길렀다 하자. 그러면 본래 자기가 원하는 형이 아니라서 만족이 없을 것이다. / 사람 기르는 것도 그러하다. 성자와 그 분체는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기르기 어려워도 사람이 하늘의 신부가 되는 것을 원하니, 창조 목적대로 사람을 신부 형으로 기른다.
17. 호랑이와 치타가 없으면 물릴 걱정은 없지만,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18. 집에 호랑이를 기르니 그 골짜기에 늑대, 이리, 여우, 산돼지 등 야수들이 집에 가축을 잡아먹으러 오지 않았다. /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호랑이와 치타 같은 자를 길러야 그로 인해 사탄과 인사탄들이 생명들을 잡아먹으러 함부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에 보낸 사명자는 그리 행한다.
19. 동물들을 키우면서 동물들이 자유로운 것을 보려면,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면서 동물들을 풀어 놓고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 자기가 안전하게 살려면, 동물들을 철조망에 가둬 놓고 살아야 한다. / 사람도 그러하다. 신앙인들의 개성을 살려 키우려면, 시대 사명자에게는 그만큼 고통이 따르고 신경이 쓰인다. 그 대신 키워 놓으면 그들이 사망으로 가는 생명들을 잘 다루게 되고, 자기도 강하게 자라서 남들보다 잘한다.
20. 부모도 애인도 자기 자녀나 사랑하는 자를 안전하게 기르려고 자기 주관권에 가둬서 기른다. 그러면 안전하기는 해도 상대가 재능대로 개성대로 크지 못한다. 고로 개성의 작품성이 없다. 자기가 힘들더라고 쫓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관리하며 기르면 '개성 인생 작품'이 된다.
21. 자기가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가두어 길러도 자기 개성대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자기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모순을 고치고 개성대로 자라게 하여 자기 자신을 멋있게 써라.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중심인물들도 그러했다.
22. 죄짓지 않으려고 온종일 방에서 혼자 살면 오히려 성격 버린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선악을 판단하며 강하게 살아야 의를 행하며 살게 되고, 자기 마음도 영도 튼튼하게 된다.
23.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나는 잘했다." 하며, 자기와 겨루는 상대와 싸운다.

24. 못한 것은 '죄'요, 잘한 것은 '의'다. 자기와 겨루는 자는 잘한 것이 있어도 항상 못한 것을 말한다.
25. 영계에서도, 혼계에서도, 육계에서도 흠을 잡는 자는 항상 못한 것만 말한다.
26. 사랑으로 권해 주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어라.
27. 자기가 자기 흠을 찾아내서 깨끗이 고쳐라.
28.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흠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러나 상대는 자기의 흠을 잘 안다. 고로 상대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서 고치는 것이다.
29. 운동선수의 코치는 자기가 가르치는 선수의 부족한 점을 안다. 고로 말해 주어 잘하게 해 준다. 그 말을 듣고 고치는 만큼 완전해진다. /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도록 매일 고쳐라.
30. 주의 뜻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그 날 승리한다.
31. 양의 목자는 양이 게으르거나 성격이 거칠어 양끼리 싸우고 상처를 줘도 양털만 깎아다 팔고, 때가 되면 양을 팔아 돈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니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만족한다. 고로 양의 모순은 고치려 하지 않는다. / 그러나 하늘의 양의 목자는 양은 사람이기에 모두 하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구원을 이루게 해 준다.
32. 완전히 만들면 완전한 구원이다.
33. 전능자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그 마음·정신·생각·행실이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되게 하여 그로 인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 영만 천국에 오게 하셨다.

<2012년 9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사람이라도 동물같이 살면 동물같이 된다. 하지만 동물은 아무리 사람같이 살아도 '영'이 없어서 사람은 안 된다. / 이 말은 사람은 그만큼 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은 그만큼 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인간은 얼마든지 동물처럼 변할 수도 있지만, 동물은 한계가 있어서 사람처럼 변하지를 못한다. 고로 사람은 악하게 변하면 지옥까지도 가게 되고, 선하게 변하면 천국까지도 가게 된다.
3. 인간은 열심히 하여 변화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신의 경지까지 변화되고, 나쁘게 변질되면 악마인 사탄까지 돼 버린다.
4.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시는 성자 주님과, 자기를 감동시키시는 성령님과,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사명자의 말을 듣고 날마다 삼위일체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변화시키는 역사다.
5. 이미 자신을 삼위일체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변화시킨 자라도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6. 자기를 만들고 몸부림쳐 변화시킨 자도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날그날 때를 따라 얻을 것을 얻지를 못한다.
7. 매일 할 일을 해야 그리스도 성자를 얻는다.
8. 날마다 행할 것을 행해야 얻고 존재하면서 전진한다.

9. 사람이 변질되어 짐승같이 살면 짐승같이 되지만, 짐승은 아무리 사람같이 살아도 사람같이 되지 않고 역시 짐승이다.
10. 하나님은 동물의 한계를 인간보다 아주 낮게 정해 놓으셨다. 고로 동물이 사람 짓을 해도 역시 동물에서 머물게 하셨다.
11.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셨다.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게 극과 극으로 창조하셨다. ‘행위대로’ 변화되도록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이 그 행위에 따라 짐승같이 변하기고 하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같이 되도록 창조하셨다. / 그러니 그 예리한 마음과 정신과 몸을 가지고, 매일 창조주 하나님과 너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의 말씀을 그 사명자를 통해서 듣고 매일 성삼위를 닮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12. 인간이 자기를 지은 창조자와 자기를 구원하는 구세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게 창조되었고, 들으면 재창조되어 천국으로 가게 창조되었다.
13. 동물은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지옥도 천국도 가지 못하게 ‘영혼 없이’ 창조되었다.
14.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에서 택한 구원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인생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과 성자를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사망 지옥으로 가게 하였고, 믿고 사랑하는 자의 영은 천국으로 가서 살게 하셨다.
15. 천국도 지옥도 한 발자국에 가지 못한다. 점진적으로 간다.
16. 오늘도 네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보아라.
17. 인간들은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육적인 것을 위한 길만 필요 없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놓았다. 고로 모두 필요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다.
18. 하나님은 인간들 앞에 사망길과 생명길, 두 길만 두셨다.
19. 어떤 도시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길을 만드느라고 나무, 호수, 계곡 등 자연의 길을 다 닦아 놔 버렸다. 고로 그 도시에는 나무도, 계곡도, 물도 없는 아스팔트 길만 삭막하게 나 있었다. / 이와 같이 인생들은 자기만 좋게 살기 위해 자기 좋은 대로 길을 내놓았다. 썩은 문화의 길, 썩은 노래의 길, 썩은 수만 가지 이성의 길, 먹고 입는데 치중한 수천 가지 썩은 길, 썩은 이론의 길, 공의롭지 못한 썩은 재판의 길, 수백 가지 썩은 유혹의 길, 우상 길, 썩은 배설물 같은 무력·혈기·테러·양심·미움·음모·악평·불신·배신·변질의 길, 마약·도둑·강간·살인·사기·욕심·폭력의 길, 무신론의 길, 각종 악인들의 길, 함정의 길 등 각종 음부의 길, 무저갱의 길, 지옥의 길을 내놓았다. 고로 생명길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만 모든 길을 분별하고 생명길로 간다. 그 길은 나무와 폭포수와 호수 등 각종 자연의 아름다움이 길 옆에 가득하다.
20. 사람들은 저마다 편하게 살려고 육적인 길만 수백 가지로 내놓고 산다. 그 삭막한 길 때문에 사막 인생이 되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별에 사는 인생들이 되었다.
21. 오직 하나님을 향한 생명의 길, 곧 그리스도의 길만 따라가면, 좌우에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공기 좋은 천국길을 가게 된다.
22. 새벽에도 낮에도 오직 생명길로 가라.
23. 자기 길로 가면 사망길이다.

24. 이 세상 ‘육신의 삶’은 마치 관광객같이, 나그네같이 거쳐만 가는 정도로 살면 된다. 나머지는 오직 자기 영을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육신이 거기에 밤낮 빠져 살아야 된다.

25. 날마다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삶이다.

26.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날마다 세상을 위해 살았기에 그 영혼이 날마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27. 자기 육이 사는 대로 자기 영이 천국 쪽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 쪽으로 가기도 한다.

28. 세상의 모든 일도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자와 전문가만이 그 일을 알고 행한다. 이와 같이 영적 세계도 거기에서 사는 자들과 전문가만 확실히 알고 행한다.

29. 몸도 마음도 세상 삶에 빠져서 그렇게도 믿지 않고 아리송하게 생각하며 무관심했던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보다도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육이 죽고 나서야 영이 가서 직접 보고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30. ① 육신이 하루의 삶을 끝내고 잠을 자게 되면, 육은 마음·정신·생각과 일체 되어 ‘혼체’로 변한다. 그 혼체는 평소에 자기 육신이 산 대로 자기 마음·생각·행위의 실상체가 되어 혼체로서 행한다. 꿈 영계에 가면 ‘이와 같이 영의 세계가 있구나.’ 부인하지 못하고 그제야 시인한다. 혼체로 영계의 별의별 곳을 다 가 본다. 혼체는 영들이 사는 모습도 본다. 자기 육신의 마음·정신·생각이 생시에 확실하고 온전할수록 혼체가 혼계에서 더욱 잘 본다. ②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이 낮과 같은 ‘지상의 삶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되면 죽기 조금 직전부터 육신이 의식을 잃어 가는데, 이때 자기 혼체가 자기 육체를 떠나 자기 영과 일체 된다.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즉시 영체가 나타나서 활동한다. 이때 영체는 자기 육체가 살아 있을 때와 같이 확실하게 보인다. ③ 영체는 자기 육체와 혼체가 세상에서 산 행위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영체가 형성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이동되어 그곳에 처하게 된다. 고로 이때가 되면, 누구든지 절대 영의 세계를 불신하거나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 자기 행위대로 그대로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④ 영계에서 영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데 육이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영은 육보다 더 유능하다. 고로 육보다 모든 것을 더 확실하게 보고 느끼니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 먹을 것을 먹고, 옷을 입고,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사탄 마귀도 만나고, 또 천사를 부인했었는데 천사도 만난다. 영의 몸이 되어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 하나님과 성자를 더욱 깨달아 시인하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 육이 인식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자기가 불신한 자가 메시아임을 알게 된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악이 되어 자기 영의 형체가 악의 형체가 되어 있고, 더러운 짐승의 형상이 되어 있고, 자기 육의 행위대로 자기 영이 썩은 옷을 입고 다니는데 벗을 수도 없고, 자기 삶의 위치를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어둠과 사망의 악마들과 악한 영들과 같이 살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 육과 함께 먹고 즐기던 자들이 악한 영이 되어 만나게 되니 안 믿을 수가 없다. / 육신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의 꿈같이 까마득하고, 자기 육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이 현실이 되어 육의 행위대로 자기 영의 뼈와 살과 지체가 형성되어 있다. 고로 해와 달과 별을 보듯이 부인하지 못한다.

⑤ 하나님의 사자들과 천사들은 “지상에서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라고 했는데 왜 이단이라고 하며 불신하고, 관심 없이 살고, 악평하는 자들과 믿지도 않고 모르는 자들의 말을 듣고 불신했느냐.” 하며 책망하고 다닌다. 그러니 그때는 안 믿을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31. ‘제2의 죽음’이란, 육신이 잠을 자는 상태다. 고로 육신이 잠을 자면, 즉시 자기 육체가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일체 되어 ‘혼체’로 변하여 혼체로서 활동한다. / 이와 같이 사람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즉시 영체로 나타나 활동하게 된다. / 짐승은 못 깨달아도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달는다. /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이 영과 같은 혼체가 있듯이, 반드시 영체가 있다.

32.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 때문에 자기 육체가 삶을 느끼며 살고 있다. 마음·정신·생각인 혼체가 없으면, 육체가 있어도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손으로 잡아도, 입으로 먹어도 1%도 아무것도 못 느낀다.

33. 마음·정신·생각인 혼체가 없으면 육체는 식물인간이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영체가 없으면 육체와 혼체는 식물인간이다.

<2012년 9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성공해야 그동안 고생하고 살았던 일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삶을 모두 칭찬하게 된다.
2. 섭리사에서도 현재 잘해야 과거의 모든 일들을 죄로 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모두 잘했다고 말하게 된다.
3. 현재 못하면 지난날의 삶을 칭찬해 줄 수 없는 것이다.
4. 현재 잘하고 있어야 지난날 모든 삶과 지난날에 행한 모든 것들을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다.
5. 성경에 나온 자들도 승리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칭찬해 준다.
6. 승리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지적한다.
7. 현재 잘하는 자는 지난날 모든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인정해 준다.
8. 실패한 자는 지난날 잘한 것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좋게 말해 줄 수도 없다.
9. 성공해야 지난날 못한 것을 덮어 주며 잘했다고 인정한다.
10. 실패한 자는 지난날 잘했어도 잘했다고 말해 줄 수 없다.
11. 현재 잘못하고 있는 자는 지난날 잘한 것이 있어도 청중 앞에서 잘했다고 말해 줄 수가 없다.
12.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현재에 잘하고 있어야 지난날 그가 한 모든 일들을 칭찬해 주고 기뻐하며 말해 줄 수 있다.” 하셨다.
13. 현재 승리하면 지난날 모든 삶도 승리의 삶으로 인정하게 된다.
14.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현재에 잘함으로 지난날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한 것까지 뜻으로 보았다.
15. 현재 불신한 자들은 과거의 삶까지 모두 악의 삶으로 보았다.
16.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지난날 모든 삶을 인정해 주고, 선한 삶으로 말해 주게 된다.
17. 열매를 얻 나무는 지난날에 어떠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 좋은 나무라고 인정하며 말해 준다.
18. 열매를 열지 못한 나무는 주인이 나무를 베면서 “지난날에도 나쁜 나무이더니만, 현재에 열매를 열지 못했구나. 악하다.” 말한다.
19. 국가 대표로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따 오니, 교육용으로 그의 일생을 다 보여 주면서 그동안 고생한 것을 좋게 말해 주었다.
20. 주님은... 승리한 자는 죄도 의로 보고 대하셨고, 패배한 자는 죄라고 지적하지 않을 것도 죄로 보고 대하셨다.
21. 지난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성자 주님 앞에 죄로 여기고 회개하여라. 의롭게 여기고 그냥 가면 그것을 죄로 보신다.

22. 행위의 옷을 찢고 더럽게 하고 왔어도 주의 일을 하여 생명을 구해 왔으면, 허다한 죄도 다 덮여 주고 의로 이끌어 대해 준다.

23.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부모가 사 준 옷을 더럽히고 찢기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들은 산짐승을 잡아 왔다. 부모와 동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짐승을 잡다가 그랬구나.” 하고, 그 의로 인하여 칭찬해 주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었다.

24. 만일 그가 옷만 더럽히고 찢기고 돌아왔으면 “잡지도 못할 것을 뭐하러 잡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며 책망했을 것이다.

25. 성공해야 지난날 모든 삶을 성공을 위한 삶으로 말해 줄 수 있다.

26. 선생도 성자 주님을 좇아 행하여 승리했기에 주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칭찬해 주시고, 그동안 행한 일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나의 몸으로 삼고 내가 했다.” 하고 인정하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27. 전능자가 원하시는 일을 해 버리는 자는 사탄도 힐문하지 못한다. 그는 이미 자기 코스를 빠져나갔기에 승리자로 인정한다. 그를 따라가야 승리자가 되어 사탄이 힐문해도 이긴다.

28.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

29. 오해를 받았든지, 미움을 받았든지 이기고 나야 지난날에 대해 묻지 않고 이긴 자에 속하게 된다.

30. 이긴 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것이다.

31. 사랑하는 제자라도 섭리사를 나간 자는 과거에 잘한 것이 있어도 승리자로 교훈 삼아 이야기해 줄 수가 없다. 실패자로 교훈 삼고 거울삼아 말할 수밖에 없다.

32. 실패하면 과거의 삶이 안타깝다.

33. 끝까지 행하여 승리하여라.

<2012년 9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성자가 보낸 자를 무조건 흠잡지 말고, 그를 믿고 그와 일체 되어야 이긴다.

2. 이미 승리한 자와 일체 돼야 주님께서 이기는 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가 이겼으니 함께하여 모두 이기게 하신다.

3. 사람들은 ‘성자 주님은 선생님이 지난날 잘했다고 왜 그렇게도 칭찬하시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행하고, 모두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조건을 다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승리했기에 지난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다. 무조건 칭찬이 아니다. 성자는 냉철하시어 흠도 점도 다 따지신다. 죄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

4. 승리한 자는 흠을 못 잡는다. 승리자를 흠잡으면, 그의 승리를 인정하는 자들이 군사들이 되어 싸운다.

5. 하늘에서 보낸 승리자를 건드리고 흠잡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를 죄인으로 보신다.

6.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신광야로 인도해 냈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흠잡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멸하셨다.

7. 섭리사 34년 만에 일단 신부 역사는 승리했다. 신부 역사를 따른 자들도 다 승리했다. / 고로 이 시대에 성자 주님

이 보낸 자가 그동안 한 일 모두가 승리로 연결되어 모두 인정된 바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실패했다고 말하면 죄가 되고, 그 말을 하는 자는 악평자가 되어 승리의 역사에서 제함을 받게 된다.

8. 승리자를 따르지 않고 나간 자는 실패자가 되어서 승리자를 악평한다.

9.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저 여자는 도덕적으로 별로다.” 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아니다. 잘한다.” 한다. 그 남자는 여자가 자기를 사랑하니, 모두 좋게 보고 말한다.

10. 그런데 그 여자가 사랑하던 남자와 잘 살다가 남자의 말을 안 듣고 바람피우고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집을 나가 버렸다. 그때는 누가 그 남자에게 여자가 나쁘다고 하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그러하다.

11.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와 그 보낸 자와 일체 되면, 누가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흠을 잡아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12. 주의 뜻을 좇아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그 승리로 인하여 과거의 어떤 것도 잘한 것으로 인정되어 죄인시하지 않는다.

13. 새벽에 일찍 일어난 자는 늦게 잤어도 늦게 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늦게 잤는데 일찍 일어났다고 칭찬한다. 만일 늦게 일어났다면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났다고 하며 늦게 잔 것까지 들추면서 책망하고 죄로 여긴다.

14. 승리하면, 과거에 책망할 것도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칭찬받고 승리의 교훈거리로 삼는다.

15. 지난날 섭리사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선과 악의 양단에 선 일들이 있다. 그러나 섭리사가 승리하니, 성자 주님은 지난날 모든 일들을 의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며 처음부터 나중까지 승리로 말씀해 주셨다.

16. 실험한 것을 확대시켜 성공했으면, 실험한 것이 어떻게 되었어도 승리로 본다.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이 인정된 바가 되는 것이다.

17. 돈을 사기당했어도 그로 인하여 더 큰 돈을 벌어들였다면, 사기당한 것까지 화젯거리가 되어서 교훈으로 말하고 큰 돈을 벌어서 승리한 이야기를 간증하게 된다.

18. 과거에 실패했어도 현재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와 원한을 다 복직하게 된다.

19. 과거에 도둑질한 자가 그 후에 회심하고 배가된 도움을 줬으면, 도둑놈 취급을 안 하는 것이다.

20. 늦게 일어났어도 남은 시간에 할 일을 다 해 놓으면, 성자 주님도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해 흠잡아 말씀하지 않으신다.

21.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행하면, 주님은 심판의 날을 없애 주신다.

22.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죄가 의가 될 수 있고, 의가 죄가 될 수 있다.

23. 과거에 범죄 한 자가 온전히 살려고 열심히 살면, 성자 주님도 보낸 자도 희망을 걸고 쳐다본다.

24. 과거에 잘한 자가 범죄 하고 살면, 성자 주님도 보낸 자도 실망하고 쳐다본다.

25.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일을 회심하고 주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았기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했는지

그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그 말에 은혜를 받고, 그를 인정해 주며 사도 바울의 교육을 받았다.

26. 가룟 유다는 실패했기에 과거에 열심히 한 것까지 모두 자기 유익을 위해 가식으로 행한 것이 되었다.

27. 죽어 가는 나무를 살리면 나뭇가지들도 산 취급을 받듯이, 죽어 가는 자기 자신을 살리면 하나하나의 모든 삶도 산 취급을 받는다.

28. 못한 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이다.’ 하고, 잘한 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 뜻이 있었다.’ 한다.

29. 실패하면 사탄의 것이 되고, 승리하면 주님의 것이 된다. 사탄은 실패의 존재자요, 주님은 성공의 존재자이시다.

30. 자기 사랑도, 자기 마음도, 자기 몸도 주님의 것이 되어 쓰이면 죄가 아니다.

31. 주님의 몸이 되어 쓰였기에 그가 한 일은 성자가 한 일이니 죄가 되겠느냐. 성자의 것이니 죄가 안 된다.

32. 성자 주님이 그의 육을 쓰고 행한 일을 인간이 죄로 여기고 그 일이 인간 법으로 볼 때 죄가 되어도 하늘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또한 하늘 법으로 볼 때도 죄가 안 된다.

33. 구약 법으로 보면, 양과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는 신약인들의 행동은 죄였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성자가 오셔서 새 말씀을 선포하며 행하시니, 신약 법으로 보면 죄가 아니었다. 신약인들에게는 성자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

34.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35. 선생이 시켜서 한 일은 선생이 죄로 정하지 않는다.

36. 스스로 행하다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죄한다.

37. 법에 해당되는 자가 있고, 자기 권한과 사명으로 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있다.

38. 비유를 들어 보자.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만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다. 골키퍼는 자기 사정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고, 사정거리 밖에서는 얼마든지 발로도 공을 찰 수 있다. / 이와 같이 ‘사명’에 따라 하나님의 권한이 주어진다.

39. 골키퍼가 아닌데 손으로 공을 잡으면 축구 법에 걸린다. / 이와 같이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때 힐문한다. 그러나 사명으로 인한 권한이 있는 자는 힐문하지 못한다.

40. 과수원 주인은 자기 과수원의 과일을 얼마든지 따 먹을 수 있고 팔 수도 있다. 또한 “과수원의 과일을 따 와라. 팔아 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과 종이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린다. / 주인 되신 성자께서 사명자에게 “과일을 따라.” 하면 따고, “과일을 팔아 와라.” 하면 팔아 오는 것인데, 타인은 그것을 보고 남이 과일을 따 가는 줄 알고 주인에게 말한다. 그러면 주인은 “가만두어라.” 한다. 사명자는 성자께서 시켰는데 안 하면 죄가 된다.

41. 사탄이 시켜서 하면 세상에서 볼 때 의가 되어도 죄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세상에서 볼 때 죄가 되어도 의다.

42. 사도 바울은 “우리 행하는 것이 주가 하는 일이면 어찌하겠느냐.” 했다.

43. 전능자의 법을 범하지 않아야 의가 된다.

<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름답게 체계적으로 창조하셨다.
2. 동물은 단순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이 이성의 선을 넘어 동물을 사랑하며 살까 봐 털이 나게 단순하게 창조하셨다.
3. 동물은 인간의 한참 밑으로 땅에 닿게 창조하셨다.
4.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5. 동물은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얼굴, 눈, 코, 귀, 목, 발, 가슴, 엉덩이, 입, 이빨, 털 등 모두 인간에 비하면 아름답지 못하게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다.
6. 만일 동물도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으면, 사람이 동물을 잡아먹거나 다스리지 않고 사람같이 사랑의 관계를 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의 염색체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생각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고, 몸의 구조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고로 사람이 동물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살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창조하셨다.
7.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든지 사람같이 예쁘고 아름답게 높은 차원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간이 동물을 다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이미 아셨기에 사람처럼 정이 안 붙게 만드셨다. 그래도 이 세상에는 동물을 사람처럼 사랑하며 동물과 함께 사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제2의 동물이다.
8. 인간이 지능이 낮으면 동물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대한다.
9.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지능이 높은 인간으로서 인간끼리의 삶도 차원을 높여서 보기에 이성 향락과 어떤 향락의 삶들이 정확하게 짐승의 삶같이 보인다.
10.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성자의 마음이 임한 자는 사람들끼리의 삶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하는 삶이 귀하게 보인다.
11. 수석 전문가는 아무 돌이나 좋아하지 않는다. 수준 높은 수석만 귀하게 본다.
12. 땅 전문가는 땅을 볼 때 금 같은 땅을 구분할 줄 안다.
13. 원시인들은 문명이 발달된 세상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며, 그것을 주식으로 삼는다.
14. 신앙 원시인과 신앙 문명인은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다.
15. 신앙 문명인과 신앙 원시인은 서로 말이 안 통해서 같이 못 산다.
16. 문화의 문명인이 TV를 보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수준이 낮아서 못 본다.
17. 문화의 원시인이나 TV를 보면서 미친 웃음을 웃으며 좋아하지, 수준 높은 문화인은 TV를 안 본다.
18. 어린아이들은 담장 밑에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며 밥도 안 먹고 논다. 다 큰 사람들은 돈을 주면서 거기서 놀라고 해도 돈을 집어던지면서 안 한다.
19. 인생 지능이 낮으면 수준 낮게 놀고 수준 낮게 산다.
20. 돌을 황금같이 여기고 사는 자도 있고, 돌을 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소경도 있다.

21. 무지의 원시인과 눈뜬 문명인은 삶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

22. 한 여자가 있는데 얼굴은 보통이다. 그런데 몸은 멋있다. 또 한 여자는 얼굴은 미인인데 몸은 보통 이하다. 겉만 보는 자들은 얼굴을 보고 미인이니 전체가 다 미인이라고 하며 몸이 보통인데 몸까지 멋있다고 취급한다. 이것이 인간의 눈높이이며 마음 높다. 전능자는 전체를 보고 점수를 내서 평균으로 보신다. 사람의 평가를 중요시하지 말아라.

23. 사람은 지체를 크게 나눠서 일곱 가지로 본다. 그중의 어디가 뛰어난 지체 작품인지 모른다.

24. 얼굴이 별로라도 미인 못지않게 타고난 멋진 지체가 있다. 거울에서 얼굴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일곱 군데를 다 보아라. 전체가 다 못생겼으면, 그 사람은 걱정이 되니 선생에게 의논하여라. 첨단의 멘토링을 듣고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세 군데는 작품으로 만들어 줄 자신이 있다.

25. 둘 작품도 전체를 보고 그중에 사람 형상이나 동물 형상이 있으면 그 둘의 균형이 깨져있어도 작품으로 본다. 인간도 일곱 군데에서 한 곳만 작품이어도 작품 취급을 받는다.

26. 하나님은 개인에게 일곱 가지를 다 작품으로 주지 않으신다. 선생은 한 가지도 작품으로 안 주셨다고 하며 실망하고 한탄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메시아를 제대로 알고 귀한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전하는 것이었다.

27. 결국 영적 모양을 갖추니, 나의 욕을 보고 내가 나를 천대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되었다. 남이야 “못 봐 주겠네.” 하더라도 내 잘난 맛으로 한때 나를 칭찬하며 살았다.

28. 혼자 나를 칭찬한 것은 나를 칭찬해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혼자 있을 때만 나를 칭찬했다. 그 칭찬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행하니,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칭찬이었다.

29. 사람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기분이 좋다고 하여 온종일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예쁜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더 기분만 나빠져서 돌아왔다.

30. 주님만 좋아하고 사랑하며 전도하려 다녔더니, 눈에 보이는 자들이 다 예쁘게 보였다. 고로 전도의 힘이 생기고 전도하고픈 마음이 생겨서 기어이 전도했다.

31. 한번은 제자들이 내 눈에 띄는 사람을 전도해 오지 않아서 선생이 직접 서울 시내에 나가 종로1가에서 종로4가까지 걸어 다니며 눈에 띄는 자를 전도하려 했다. 큰마음을 먹고 땀을 줄줄 흘리고 다니며 좌우와 앞뒤를 다 보았다. 그렇게 종로1가에서 3가까지 긴 거리를 다녔으나 눈에 띄는 자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종로4가에 가니 한 사람이 눈에 띄어 쫓아갔다. 그래서 그 여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길가의 유리창 미닫이문을 열고 쪽 들어갔다. 그 여자가 들어간 곳의 간판을 보고 실망하고 되돌아왔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킁킁대고 웃었다. 그리고 종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캠퍼스로 가라고 말해 주었다. 곧 캠퍼스로 가서 전도하여 잉어도 잡고, 갈치도 잡고, 상어도 잡고, 인어도 잡았다. 뱀장어도 잡았는데 미끄러워서 놓쳤다.

<2012년 9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구시대 사람들이나 새 시대 사람들이나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새 시대 새 역사로 온 사람들은 실상은 구시대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

2.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성약역사의 사람들은 신약역사의 사람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말씀 차원’이 다르니, 육도 혼도 영도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어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 신약역사 사람들은 자녀 말씀을 듣고 사니, 그 육도 혼도 영도 자녀 차원으로 변화되어 자녀권에서 살고 있고, 성약역사 사람들은 신부 말씀을 듣고 사니, 그 육도 혼도 영도 신부 차원으로 변화되어 신부권에서 살고 있다.)

3.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의 '사명'에 따라 <말씀>이 다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칭호>도 다른 것이다.

4. 현시대에는 성자가 초림하여 나사렛 예수를 그 육으로 쓰면서 '신약말씀'을 전하며 2000년 동안 이론 <신약권 세계>와, 성자가 재림하여 시대 사명자를 그 육으로 쓰면서 '성약말씀'을 전하며 지금 이루고 있는 <성약권 세계>가 있다. 이는 마치 세상에 남자와 여자, 두 종류의 성별을 가진 다른 존재가 있듯 한 것이다.

5. 시대는 항상 구시대 종교와 신시대 종교, 두 종교가 상대성을 이루면서 간다.

6. 신약역사 2000년 동안 신약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교파가 있었다. 천주교가 1600년 동안 역사를 펴 왔고,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되어 개신 기독교 역사가 일어났다. 개신 기독교 안에서도 수십 가지의 교파가 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식교, 순복음 등이다. 교파는 달라도 모두 '자녀급 차원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안에 속한 신약 구종교다. / 성약 섭리역사만 하나님의 새 역사다.

7. 호랑이, 사자, 표범, 치타 모두 고양이과에 속한다. 이와 같이 신약권 안에서 어떤 교파든지 결국 모두 동일한 <자녀급 차원의 말씀>이다. / 성약권은 마치 고양이과와 완전히 다른 사슴과와 같이 신약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사슴과는 고양이과와 달리 풀을 먹고 산다. 이와 같이 성약권은 신약권과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다. '땅의 말씀의 주인'도 다르다.

8. 성자 재림 전의 말씀 세계는 신약권 세계로서 <신약 자녀급 말씀>이고, 성자 재림 후의 말씀 세계는 성약권 세계로서 <성약 신부급 말씀>이다.

9. 구약 - 신약 - 성약의 차원은 별 - 달 - 해와 같다.

10. 남자에게는 아기집이 없어서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와 같이 <신약말씀>을 가지고서는 땅에서 육도 '신부급'으로 휴거되지 않고, 그 영도 '신부급'으로 휴거되지 않는다. / <구약말씀>을 가지고서는 '자녀급'이 될 수 없었다. 자녀급이 되려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했다. / 이와 같이 <신약말씀>을 가지고서는 방향이 달라서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성자의 재림을 맞을 수 없다. 고로 못 맞고 지금 구시대에서 사는 것이다.

11.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때가 되면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이 시대 성약권에 해당되는 성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가 여자 입장의 신부같이 변화되어서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을 맞고, 육신이 땅에서 휴거되어 살고, 그 영은 하늘에서 오신 성자의 재림을 맞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간다.

12. 사람은 사는 위치에 따라 그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변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의 말씀을 듣되, 어느 차원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그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된다.

13. 구약말씀을 듣고 따르면 구약인이 되고, 신약말씀을 듣고 따르면 신약인이 되고,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인 성약말씀을 듣고 따르면 성약인이 된다.

14.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시대마다 목적인 바대로 상대의 사람을 창조해 나가신다.

15.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기 종으로 만드는 말이 다르고, 자기 친구로 만드는 말이 다르고, 자기 애인으로 만드는 말이 다르다. '말'을 가지고 상대를 만든다. 하나님도 성자도 '말씀'으로 상대를 만드신다.

16. 하나님은 시대마다 땅의 사명자를 보낼 때마다 반드시 '말씀'을 주어 보내신다. 그 '말씀 내용'을 보면 그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왔는지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자께 새 시대 말씀을 받지 않고, 구시대에 속해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온 자들의 말씀은 역시 종전신약말씀이다.

17. 신약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마 7:6)』했다. 거룩한 새 신약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는 말이다. / 이 시대는 성약역사로서 신부로 만드는 말씀을 주신다. 역시 개나 돼지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지 말아라.

18. 돌감나무끼리 2000년 동안 접붙여도 그 열매는 ‘돌감’이다.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한 번만 접붙여도 ‘참감’이 열린다. 이와 같이 신약말씀은 2000년 동안 들었어도 자녀급밖에 안 되었다. 6000년 동안 듣더라도 역시 자녀급밖에 안 된다. 하루라도 성약말씀을 들어야 신부급이 된다.

19. 신부 말씀을 들어야 하루를 들어도 신부가 된다.

20. ‘말씀’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천국의 어느 차원에 거하느냐 하는 것도 ‘말씀 차원의 결과 세계’다.

21. ‘말씀’으로 육과 혼과 영이 변화된다.

22. 육과 혼과 육이 변화되라고 시대 말씀을 준다. 듣고 감동받고 바로 행해야 변화된다.

23. 말씀을 못 들으면 변화되지 않는다. 말씀은 자료다. 자료 없이는 못 만든다.

24. 이 시대 신부가 되는 말씀을 못 들으면, 어느 누구도 신부로 부활이 되지 못한다.

25. 이 시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 육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자기 영에게 그 영향이 가서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

26. 남자가 여자에게 X염색체를 주느냐, Y염색체를 주느냐에 따라 생명이 남자로 태어나느냐, 여자로 태어나느냐 성별이 좌우된다. 여자가 마음대로 잉태될 생명의 성별을 결정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여자 격인 인간 마음대로 사명을 못 한다. 남자 격인 하나님과 성자는 사명대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을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받아야 시대 말씀을 주신다.

<2012년 9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를 위한 시간의 축복을 받은 자는 행복한 자다.

2. 자기를 위해 시간을 귀히 쓰는 자는 행복한 자다.

3. 자기를 망하게 하는 데 시간을 쓰기도 하고, 자기를 흥하게 하는 데 시간을 쓰기도 한다.

4. 시간이 있더라도 잘못 쓰면 자기를 고통의 길로 가게 한다.

5. 시간을 잘못 쓴 자가 사망길을 거쳐 음부를 지나, 그 멀고 먼 지옥의 세계까지 가게 된다.

6. 시간을 오직 생명길로 가는 데만 써라.

7. 시간을 총 집중하여 끌어 모아서 순간의 존재를 위해 필요 없이 쓰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데 써라.

8. 행악자들과 꾀박자들은 그 귀한 시간을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데 쓰기에 바쁘다.

9. 의인들은 천국 가는 데 시간을 쓴다.

10. 한 시간을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생명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써라.
11. 주님의 공적인 일을 할 때는 한 시간이 10억이라고 생각하면서 써라.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면 그 값은 천국에서 다 준다고 성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12. 주님과 단둘이 보낼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공적인 일에 써도, 그 시간의 가치가 90배 이상 떨어진다. 주님과 단둘이 보낼 시간은 오직 주님과만 써야 된다.
13. 기도 시간에는 공적인 일을 하다가도 다 자르고, 오직 기도하는 데 시간을 써라.
14. 공적 시간에는 공적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써라.
15. 공적 시간을 사적으로 쓰면, 시간을 9배 이상 가치 없이 쓰게 된다.
16. 내가 시간을 귀히 쓰니, 성자 주님께서 시간의 가치에 대해 깨우쳐 주셨다.
17. 제대로 시간을 쓰는 자만이 제대로 시간의 값을 하며 산다.
18. 시간을 잘 쓰는 자가 인생 성공한다.
19. 시간을 귀히 쓰지 못하는 자는 실패하고 한탄한다.
20. 1시간을 1시간으로 쓰는 자는 '보통 성공'을 하는 자요, 1시간을 2시간으로 쓰는 자는 '상위권 성공'을 하는 자요, 1시간을 3시간으로 쓰는 자는 '특별한 성공'을 하는 자다.
21. 인생은 '시간'과 '생각'이다.
22. 인생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하고 사느냐에 따라 성공한다.
23. 보통 생각을 하면서 살면 보통 인생이 되고,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살면 특별한 인생이 된다.
24. 인간의 자체 생각은 보통 생각이다. 인간이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도 역시 인간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한 인간 생각으로서 보통 생각이다.
25.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생각을 배우고 알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최고 가치 있는 삶을 산다.
26.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생각과 같은 상태에서 시간을 쓰고 산다면, 그 욕도 잘되고 그 영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살게 된다.
27.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쓰고 산다면, 그 욕도 영도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2012년 9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어느 시대든지 시대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어 그것을 표상으로 하나님과 주님의 생각을 알리신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을 표준 하여 보신다.
2. 시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하여 삶을 살아야 사망권을 벗어나 살게 된다.

3.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4. 사람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자에게 함께하고 그를 도와주듯이,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그러하시다.
5. 시대 말씀을 불신한 자들은 말씀의 주관권에서 이루려던 하나님 뜻과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로서 구원을 상실한 자들이다.
6. 시대 말씀을 불신하여 구원을 상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세상에서 어느 한 곳에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신용을 못 지켰다고 하자. 세상 이치로는 그는 다른 데 가서 다시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서 그 시대 땅의 사명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의 주관권에서 전 세계에 동일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중심권에서 벗어나면 세상 어디를 가도 가인이 되어 추방당하는 육과 영이 된다.
7. 의와 공의를 중시하시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한 것은 어떤 종교나 동일하게 행하신다.
8. 가령 한 곳에서 깨진 그릇이 다른 곳에 가서 새 것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온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종교 세계다. 한 종교에서 하나님께 불법을 행해 놓고 다른 종교에 간다고 해서 그 죄가 의가 되지 않는다. 그는 어디를 가나 죄인이요, 불신자요, 배신자가 된다. 회개하여 본래 상태로 되지 않으면, 그 영이 영원히 죄의 상태에서 살게 된다.
9. 초림 때 메시아 나사렛 예수님이 전한 신약말씀을 몰라서 핍박한 자들과 계획적으로 핍박한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자기의 다른 죄를 회개했다 해도 그 죄는 회개가 안 된다. 그들은 예수를 핍박한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로 구원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자의 영을 통해 나사렛 예수라는 육체를 쓰고 강림하시어 나타나셨으니, 나사렛 예수를 불신하고 배신하고 핍박한 것이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핍박한 것이었다.
10. 어디를 가도 ‘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복직되지 않는다. 주님께 회개하여 다시 의를 쌓고, 시대 구원자를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해야 된다. 불신 죄와 배신 죄는 회개 기회가 없이 거의 그대로 끝나 버린다. 마치 극한 농약을 한 컵 마신 자가 다시 살기 어렵듯이 어렵다. 자기가 불신과 배신의 극한 농약을 만들어 스스로 마신 격이다.
11. 그 시대 성자의 육을 불신한 자는 자기를 구원할 자를 불신한 연고로 자기가 자기 영을 죽인 것이 된다.
12. 자기 육을 자기가 죽이면 육은 그것으로 끝나듯이, 구원자를 불신한 자도 자기 영을 스스로 죽여 영이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13.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는 길을 가자 “너도 예수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그 죄를 회심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고통의 길을 가면서까지 그렇게도 회개했다.
14.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불신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칼로 벤 자가 된다. 고로 그 영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15. 영계에 가서 사망으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영들과, 영계에서 기회를 얻어 복직하여 사는 영들의 처지는 다르다. ‘불신’은 구원을 끊어 버린 것과 같다. ‘불신’은 100% 생명력이 없는 행위라서 불신한 자는 죽은 나무와 같이 자기 ‘영’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자다.
16. 알고도 불신한 자와 모르고 불신한 자는 다르다. 구원자를 믿고 따르다가 알고도 불신한 자는 주를 알고 죽인 자다.
17. 불신의 영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

18. 모르고 구원자를 죽였어도 일단 살인자가 된다. 메시아가 인류를 위해 죽어 주는 길을 갔어도 자기의 악한 행위로 죽었으니, 살인자가 되어 살인자 취급을 받는다.
19. 전능자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 ‘공의 법’을 선포하여 법대로 행하신다. 고로 어떤 개인 때문에 금방 법을 바꾸지 못하신다.
20.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크게 보시지만, 일단 그 육과 영이 사망으로 기울면 많은 사람들이라도 병들어 더 이상 살 수 없는 시체같이 대하신다.
21. 사람도 살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귀히 보고 대하지만, 생명이 이미 사망으로 기운 자는 불쌍하게 보며 대하는 것이 다르다.
22. 성자 주님은 지금까지 내게 잠언의 말씀을 쓰게 하시면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상황만 두고 하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다. 나의 역사를 두고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1000년사를 두고 선포하는 말씀이다.” 하셨다.
23.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같지 않다.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이다.
24. 하나님의 시대 법을 벗어난 자는 의를 벗어난 자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25. 하나님의 법을 자기 생명같이 귀히 여기고 지켜야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
26.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을 가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27.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 주님의 말씀은 ‘밝은 빛’이다.
28. 악인들의 말은 사망이요, 죽음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29. 시대 말씀을 불신하는 자의 말은 독약이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불신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망에 거한다.
30.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자기 욕이 한 말들을 자기 영의 뇌에 저장해 뒀다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실토해 내어 그것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고로 피하지 못하게 된다.
3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온 인류를 ‘사랑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32.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사랑의 본체로서 온 인류를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33. 하나님 법 앞에서는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듯이 모든 죄악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그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고 사는 자는 인생을 헛사는 자다.
2.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알고 살아라. 모르고 살면 무지 속에서 살다가 죽고, 모르고 미련하게 우상이나 섬기다가 욕이 죽으면 그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3. 구약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죽었다.

4. 어떤 종교는 이 시대에 살면서 구약 이야기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시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구약시대 일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끝내셨다.
5. 모세 때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지금과 달랐고, 하는 일도 지금과 달랐다. 모세 때의 일은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나오는 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사는 일, 천막의 삶을 벗어나 사는 일 등이었다. 이 일은 모세 후 3400년 후에 태어난 이 시대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 그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끝났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된다.
6. 하나님이 구약시대 신앙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것들은 역사를 배우며 교훈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다.
7. 하나님은 옛 역사 때 할 일은 옛날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고 끝내셨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옛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을 본받아 이 시대에 하면 될 뿐이다.
8. 새 시대는 새 역사다.
9. 이 시대 사람들도 옛 시대 사람들이 하듯이 하면,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10. 구약시대 법 중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지킬 것도 있고 안 지킬 것도 있다. 새 시대가 왔을 때 옛 법을 폐하고 새로운 법을 주었으면, 그것은 새 시대 법으로 지키면 된다.
11. 옛 시대에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 곧 십계명이다. 이 시대에도 십계명을 지키되, 한 차원 높여서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된다.
12. 성자 주님이 오신 후부터 구약시대의 제사법이나 율례들을 다 폐지하셨다. 그런데도 계속 그 옛 법을 지킨다면, 마치 종에서 석방됐는데도 계속 종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다. 때가 되어 감옥에서 석방됐는데도 계속 감옥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다.
13. 누구든지 죄의 법에서 석방되려면, 죄의 법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된다.
14.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죄의 법에서 벗어난 자다.
15.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죄의 법에 매여 살게 된다.
16. 어린아이 때 준 법은 커서는 안 지켜도 된다. 성장한 자의 법을 지키면 된다. 구약 법은 어린아이 때 준 법과 같다.
17. 구약 법은 ‘젖을 먹어라.’가 법이라면, 신약 법은 ‘끓으니 젖 먹지 말고, 밥을 줄 테니 밥을 먹어라.’ 하는 법이다. 성약 법은 신약 법에서 한 차원 더 높은 법이다.
18. 같은 주권권의 섭리역사라도 역사가 시작할 때 섭리역사의 차원이 다르고, 성장된 섭리역사의 차원이 다르다.
19. 하루를 두고 일을 해도 오전 일과 오후 일이 다르다.
20. 하루를 두고 먼 길을 걸어도 오전에 가는 길이 다르고 오후에 가는 길이 다르다. 그 시간, 그 때, 그 일이다. 시대도 그러하다. 지금 이 시대가 중하다.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행해야 된다.
21.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하고, ‘지금’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하고, ‘지금’ 행하는 것이

중하다.

22. 미련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믿고 살아도 옛날 구약역사 때 하던 일을 지금 현실에 하려고 한다.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고 계시고, ‘인간’은 노력하고 수고하며 이루면서 살고 있다.
2. 눈을 떠야 스치는 것도 알게 된다.
3. 육신의 눈에 보여도 그것의 가치에 대해 눈을 떠야 가치를 알게 된다.
4. 그것에 눈을 뜨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한다.
5.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마음으로 느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천국같이 누린다.
6.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심령의 눈을 못 뜬 자는 보기는 해도 못 느끼고, 듣기는 해도 못 느낀다.
7. 사랑의 마음의 눈을 떠라.
8. 눈을 뜬 자는 못 참는다.
9. 음식도 마음의 눈을 뜬 자는 음식 맛을 알고 먹고,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음식 맛을 모르고 먹는다.
10. 마음의 눈을 떠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
11. 사랑도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사랑하다가 말게 된다. 육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자는 소경이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자는 눈뜬 자다.
12.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돌’이 보물로, 황금으로, 돈으로 보이고 그 근본의 가치를 안다.
13. 마음의 눈을 못 뜨고 육의 눈만 뜨고 보는 자는 그 가치를 10분의 1정도밖에 못 본다.
14. 성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아는 자는 마음의 눈을 뜬 자다.
15. 나사렛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아는 자는 육의 눈만 뜬 자다.
16. 천국과 낙원이 똑같은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17. 나사렛 예수가 재림하고, 그 육이 눈에 보이게 온다고 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18.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못 뜬 자는 두 개를 하나로 본다.
19. 악과 선이 같이 있는데, 선악을 쪼개서 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0. 선과 악을 완전히 쪼개서 보는 자는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뜬 자다.
21. 자기중심으로 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2. 육 휴거와 영 휴거를 쪼개서 보지 못하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3. ‘육’은 하나님과 성자가 땅에 보낸 자의 육신을 중심하여 이루는데, 성자 주님께서 땅의 사명자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땅에서 육신을 휴거시키신다. ‘육’이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땅에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성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영’은 육의 행위를 통해 변화된다. 그러면 성자 본체의 영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변화된 영들만 하늘 공중으로 이끌어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떠서 육 휴거와 영 휴거가 무엇이 다른지 정확하게 분별하여라.

24. 영은 육같이 정확하게 형체를 가지고 ‘영체’로서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육은 몸과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이루고 있고, 마음·정신·생각이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이는 ‘혼체’를 이루어 꿈에 보이며 활동한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

25. 사탄과 귀신을 모르는 자는 마음의 눈도, 영의 눈도 못 뜬 자다.

26. 마음의 눈을 뜨고 기도하여라.

27. 마음의 눈을 뜨고 보는 자는 보니까 느낀다.

28.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뜬 자는 마치 사람이 눈을 뜨고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서 그 느낌과 깨달음이 확실하다.

29. 소경은 직접 못 보고 그저 생각으로만 느껴 본다.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못 뜬 자도 그러하다.

30.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성자 주님과 대화를 못 한다.

31. 시대 사명자의 사명을 100% 모르는 자는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다.

32. 성자 주님은 사랑체다. 고로 ‘사랑’으로만, ‘진리’로만 성자 주님과 통한다.

33.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듯이, ‘사랑’으로 성자 주님과 시대 사명자를 자기 것으로 삼는다.

34. 사랑체는 사랑으로만 통한다.

<2012년 9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의 눈을 뜬 자는 육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멀리서도 보고 행한다.

2. 육의 눈은 1차원, 마음의 눈은 2차원, 영의 눈은 3차원이다.

3. 육의 눈으로 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는 2차원의 것을 전혀 못 본다.

4. 나무를 보는 자는 육의 눈을 뜬 자요, 과일을 보는 자는 마음의 눈을 뜬 자요, 과일의 주인을 보는 자는 영의 눈을 뜬 자다.

5. 월명동 자연성전도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떠서 나의 육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만든 것이다.

6. 초가집 둘 작품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육의 눈으로만 보다가 내 마음대로 돌을 깨

서 하찮은 목적에 쓰려고 포클레인으로 때려 댔다. 이때 주님은 포클레인이 고장 나게 하셨다. 고로 돌을 못 깨고 중지하고 그냥 월명동으로 싣고 왔다. 그 후에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어 다시 보니, 선생이 살았던 초가집 모양의 돌이었다. 7톤이나 되는 수석 짜리 대 작품 보화였다. 모두 마음의 눈을 떠야 제대로 본다.

7. 마음의 눈을 뜨고 보니 본래의 가치대로 보여 그것을 쓰는 곳도 전혀 달라졌다.

8.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라.

9. 자기 자신도 마음의 눈을 떠서 보면 개성의 보화임을 깨닫고, 절대 욕적으로 생각한 대로 자기를 쓰지 않는다.

10. 길바닥에 돌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수석에 마음의 눈을 못 떠서 그 돌을 짓밟고 다녔다. 그런데 수석에 마음의 눈을 뜬 자가 가져갔다. 실상 그 돌은 수석 짜리였다. / 모두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보아라. 길바닥에서 짓밟히는 수석보다 낫다. 그 가치가 하늘까지 솟아 있다. 그러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 마음의 눈을 못 떴기 때문이다.

11. 나무에 마음의 눈을 못 떴을 때는 1억이 넘는 분재 소나무를 잘라 버리려 했다. 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때는 돌에만 눈을 뜨고 나무에는 눈을 뜨기 못했을 때다. 톱으로 자르려 하니 톱이 없었고, 낫으로 자르려 하니 풀을 베는 낫이라서 나무를 자르다가 낫이 부러질 것 같아서 그날은 못 자르고 말았다. 내가 나무에 대해 소경이라 모르고 행하니, 성자 주님께서 내가 못 하도록 상황을 트셨다. / 그러다가 소나무를 심는 데 마음의 눈을 못 떠서 심는 대로 소나무가 죽어 낙심할 때, 성자 주님께서 순간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깨달았다. 지난번에 바위 위에서 자란 소나무가 생각났다. ‘아~ 그 바위에 있는 소나무를 자르지 말고, 소나무가 자란 바위째로 갖다 놓으면 100% 살겠다.’ 했다. / 바로 그날 가서 포클레인으로 바위를 들어다가 월명동으로 옮겨서 자연성전 잔디밭의 분재로 갖다 놓았다. / (사진 보여 주면서) 이 소나무는 납작 소나무로서 천연기념물 나무다. 그 값은 다이아몬드 값이다. 성자 주님께서 가꿔 오신 나무로 200년 이상 길러 온 소나무였다. / 모두 저마다 바위에 난 분재 소나무와 같다. 귀히 보아라.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보고 말해 주니, 너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 몸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12. 마음의 눈을 뜬 누가 그 소나무를 바위와 함께 7000만 원에 팔라고 했다. 주님이 내게 나무에 마음의 눈을 떠 깨닫게 하여 그 값이 다이아몬드 값인지 알고 가지고 왔다. 고로 누가 팔래도 안 팔았다.

13.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눈을 못 뜬 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헐값에 사 가고 좋아하고, 판 자는 팔았다고 좋아한다.

14. 내 고향 지방리 시골 마을에 장이 열렸다.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가 밭에서 캔 도자기 주전자 하나를 놓고 팔려고 하고 있었다. 사기로 만든 파란색 주전자였다. 값은 3만 원이었다. 해가 기울도록 앉아 있었으나 안 팔렸다. 이때 골동품 전문가인 한 남자가 그 주전자를 보고 할머니에게 “그것이 집에서 쓰던 주전자예요?” 하고 물었다. 할머니는 “우리 아들이 밭을 파다가 돌이 받쳐서 캐내니, 그 밑에 이 주전자가 있어서 캐 왔어. 팔아서 담배나 사서 피겠다고 하며 팔아 오라고 해서 팔러 왔어. 그런데 안 팔려.” 했다. 골동품 전문가는 “얼마에 팝니까?” 물었다. 할머니는 “3만 원이야.” 했다. 골동품 전문가는 “너무 비싸요.” 했다. 할머니는 “내 아들이 3만 원 안 주면 팔지 말라고 했어.” 했다. / 할머니도, 그 아들도 도자기에 마음의 눈을 못 뜬 소경이었다. 그 주전자를 사려고 하는 자는 골동품에 눈을 뜬 전문가였다. 그는 그 도자기를 3만 원 주고 샀다. 그 도자기는 고려청자였다. 그때 돈의 가치로 한화 3500만 원이 나갔다. 지금 돈의 가치로 따지면 몇억이 된다. 이날 도자기를 산 자는 돈복이 떨어지는 날이었다. 혹시 누가 볼까 봐 얼른 도자기를 사서 빨리 시장을 떴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다. “우리 아들이 이번 주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인삼을 급히 팔아야 하는데, 보아 하니 장사꾼같이 보여서 말해 봅니다. 인삼을 원가에 줄 테니 사 가세요.” 했다. 골동품을 산 남자는 ‘때가 좋다.’ 생각하고, 인삼 한 자루를 헐값에 사서 자루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자기를 넣었다. 그 자루를 메고 다음날 막차를 타고 지방리에서 나왔다. 장날이라서 버스는 만원이었다. 그는 버스 뒷자리에서 도자기가 든 자루를 꼭 쥐고 정신 차리고 있었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버스를 타다 보니 졸다가 어느새 곤한 잠이 들었다. 그러다 자루를 손에서 놓쳤다. 마지막 장날이라서 버스는 있는 대로 사람들을 태워서 서로 밀리고 치였다. 그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린 도자기가 든 자루를 사람들이 짓밟았다. 자루 주인은 자고 있느라 이 사실을 몰랐다. 목적지에 다 오기까지 자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며 그 남자를 툭툭 치며 깨우

면서 “다 왔어요.” 했다. 이에 남자는 잠에서 깼다. 놀라서 잠에서 깨어 자루를 찾으니 없었다. 자기 손에 쥐고 왔는데, 자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의자 밑에 들어가 있었다. 당황해서 자루를 끌러 보니, 이미 도자기는 완전히 다 깨져 있었다. 의자의 쇠 부분에 부딪히고 박은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거의 기절할 정도로 실컷 울고 반은 미쳐서 몇 달을 고생하며 또 도자기를 사러 다녔다. 이때 그 남자는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그 남자는 내게 “혹시 받을 파다가 나온 그릇이 있으면 사려고 왔습니다.” 했다. 나는 화골에서 파낸 질그릇이 생각나서 3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안 산다고 했다. 내가 남자에게 “나는 도자기에 눈을 떠서 다 알아.” 했더니, 남자는 웃으면서 “그래요?” 했다. 점심으로 고구마를 대접해 주니, 먹고서 자기 좀 잘 봐 달라고 했다. 나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 신앙생활 해.” 했다. 이때 그 남자가 지난날 도자기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남자에게 말했다. “3500만 원이나 되는 비싼 것을 아무리 파는 사람이 모른다 해도 어떻게 3만 원에 사냐? 더 줘야지.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깨진 것이야. 앞으로 그런 물건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몰라도 제값의 3분 2는 줘.” 했다. 이 사연을 섭리사의 교훈으로 삼으라고, 성자 주님께서 선생에게 그 남자를 만나 그 사연을 듣게 하신 것이다. * 다시 말한다. 모두 저마다 작품이다. 그러니 마음의 눈을 뜨고 자기 자신을 귀히 보아라. 마음의 눈을 뜬 자가 보고 말해 주니, 너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 몸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또한 매사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2012년 10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어떤 공적 일도 안 하고 기도하니, 주님을 만났다.
2. 사람끼리도 시간을 안 지키면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 성자 주님은 전능자요, 왕 중의 왕이시다. 고로 시간을 안 지키면 사람보다 100배나 더 기분 나빠하신다.
3.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 했는데 교통 체증으로 차가 너무 밀렸다가, 사고가 났다가, 오는 길에 꼭 전도를 해야만 했다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로 시간을 못 지킨 것은 주님이 이해하신다. 그러나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주님께서 기분 나빠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가르쳐 주라고 하셨다.
4. 사람은 자기가 속상한 것은 잘 알고 따지는데, 상대방의 속상한 심정은 모른다.
5.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심정 상하는 일과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다. 심령의 눈을 뜬 자는 그 마음을 느껴본다.
6.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나 약속한 모든 것들을 안 지키는 자는 마치 왕과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자와 같다. / 왕과 시간을 약속하거나 어떤 다른 것을 약속해 놓고 안 지킨다면, 그 후에 너무 두려워서 행여 죽을까 봐 사족이 떨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왕 앞에 나가게 된다. / 그런데 왕보다 수십억만 배 더 높고 크신 성자 주님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키고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그냥 산다. 성자 주님을 모르니 무지한 인생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한 자만이 안다.
7. 주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에게 너무도 필요한 일이다. 고로 그 말씀을 안 지키면 그 일을 하는데 자꾸 어렵게 되고, 필요 없는 고통을 받게 되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고, 주님 앞에 신뢰를 잃게 된다.
8. 주님과 약속한 것이 어려워도 행하면, 자신이 봐도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다.
9.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으로 행할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10. 약속한 것은 축복이다. 지키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다.
11. 주님과 무엇을 약속했는지 생각하면서 지켜라.
12. 성자 주님은 ‘시간’을 타고 오신다. 고로 누구든지 시간을 내 주지 않으면, 주님이 가실 수가 없다.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거죽은 못 없앤다. (설명 : ‘근성’을 못 없앤다는 말이다.)
2. 인간은 과일로 따지면 껍질이 없는 ‘딸기’가 아니다.
3. 인간은 껍질이 있는 배나 사과와 같다. (설명 : 인간은 육이라서 껍질같이 근성이 있다는 말이다.)
4. 육은 껍질이고, 혼과 영은 알맹이다. (설명 : 고로 껍질을 안 없애도 안에 알맹이가 있다. 껍질이 보호하면서 알맹이가 자라게 한다.)
5. 본체는 온 지체를 다 가지고 있고, 분체는 지체의 부분만 가지고 있다.
6. 성자 본체인 한 사람만, 그가 세상을 대표할 때만 본체 입장이다. 그가 세상을 대표할 때만 분체이지만 본체 입장으로 지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성자 본체 앞에 그의 분체는 영의 입장으로 반쪽이다. 백성들은 육의 입장으로 나머지 반쪽이다. 고로 분체 반쪽과 백성들 반쪽이 합쳐서 세상의 본체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나 되어 본체가 되어 성자 본체의 대상 역할을 해 준다.
8. 성자 본체 앞에 그의 분체가 육적으로만 볼 때 세상 모든 자들 앞에 본체가 된다. 성자 본체 앞에 세운 자가 본체인데 그가 영의 입장으로 반쪽이고, 백성들이 육의 입장으로 나머지 반쪽이다.
9. (8월 27일 월요일 새벽 선생님의 기도) 한국과 섬리세계 각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섬리인들과 새로 전도되어 나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인생들의 연약함이 걱정되었다. “하나님,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에 비하면 그 능력이 10억 분의 1도 안 되게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서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며,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함께 행하시려면 심정 타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며 구원의 책임자로서 인생들의 연약함을 알고 앞날이 캄캄하여 심정 태우며 기도했다.
10. 이때 하나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희는 나의 상대이니 할 수 있다!” 하셨다.
11. “전능자 앞에 인간이 약해도 할 수 있다. 인간은 나의 상대이니 할 수 있다.”
12. 상대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13. 모든 존재물이 상대체가 되면 약해도 할 수 있다.
14.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는 약해도 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약해도 할 수가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
15. 가령 큰 바위 앞에는 큰 돌이라도 상대가 아니라서 못 심는다. 나무는 바위의 상대가 되기에 심을 수 있다. 나무가 크면 바위 옆에 심고, 나무가 작으면 바위 위에 심는다.
16. 하나님은 상대체인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창조 목적을 정녕코 이루신다.
17. 남자끼리는 서로 사랑의 상대체가 아니라서 사랑의 뜻을 못 이룬다. 남자의 사랑의 상대체는 여자다. 고로 남자의 상대가 되는 여자라면 어려도 부족해도 성장시켜서 결국 사랑의 뜻을 이룬다.
18.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도록 상대체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정녕코 뜻을 이루신다. 상대체가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 성자가 재림하실 때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성자의 상대체이므로 그 중의 한 명이라도 성자의 상대체가 되면 재림의 역사는 승리한다. 땅에서 한 명이 성자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결국 재림의 역사도 승리하고 말았다.

20. 하나님께서 성자의 상대체가 되도록 성자 본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21. 상대체만 만들어지면 즉시 행한다.

<2012년 10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자도 뜻을 트실 때는 상대체를 트신다.

2. 상대성 일체, 성공 세계다.

3. 상대체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고로 사탄은 항상 상대체를 방해하여 든다. 이 비밀을 알아라.

4. 에덴동산에서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인 아담과 하와를 꾀며 상대체를 틀었다.

5. 작아도 어려도 하나님의 상대체만 되어 끝까지 가면 할 수 있다.

6. 커도 상대체에서 벗어나면 못 한다.

7. 작아도 상대체만 되면 할 수 있다.

8. 섭리사에 있는 자들이 작은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이기에 재림역사의 신부들로서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재림의 뜻을 이룬다.

9. 섭리사를 나가면 큰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못 되니 재림의 뜻을 못 이룬다. 기성은 커도 시대 신부 말씀을 듣지 못하여 신부로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못 되니 재림의 뜻을 못 이룬다.

10. 작으나 크나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만이 뜻을 이루게 되고, 신랑으로 재림하신 성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

11.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자와 그 본체의 상대체가 되게 해야 된다.

12. 본체 앞에, 즉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상대체가 되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

13.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두고 상대체가 되어야 매일 쓰임 받고 하나님과 성자와 교통한다.

14. 전파도 상대체와만 통하고, 전화도 자기가 전화를 거는 상대체에게만 전화가 간다.

15. 상대성이다.

16. 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는 '신부'다. 신부 외에는 신랑 되신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지 않는다. 신랑이 종과 통하겠느냐, 형제와 통하겠느냐.

17. '시대 말씀'이 상대성이다.

18. 성자 본체도 그의 본체도 그대에 맞는 상대를 찾는다. 상대가 아니면 안 통하니 상대 기준을 세운 자에게 뜻을 편다.

19. 상대가 아니면 생명의 역사를 못 편다.

20.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같이 하고 그 상황을 본 자가 상대체다. 그에게 작든지 크든지 일을 맡겨 그 일을 하게 한다.

21. 모세는 “나는 작은 사람인데 어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할 수 있다. 나의 충성된 자로서 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셨다. 그때 다른 사람은 못 했다. 오직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는 모세만 했다.

22. 어제 밤이 늦도록 월명동 가이드 설명을 쓰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기도 시간에 늦었는데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잠언을 쓰고 있다. 내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자이니 내게 잠언을 주시어 쓰고 있다. 상대자라서 시간적으로 작은 자이지만 잠언을 쓰게 하신 것이다.

23. 고욤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여서 나무가 자라면, 고욤나무의 크기는 감나무 크기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나 고욤나무는 감나무의 상대이기에 결국 참감 열매를 열게 한다. 다른 나무는 상대가 아니라서 열지 못한다.

24. 상대는 작아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주체와 대상, 성자 본체와 분체다.

25. 하나님 앞에 “못 한다.”, 성자 본체와 분체 앞에 “작다.” 하지 말아라. 상대체니까 본체와 일체 되니 할 수 있다.

26. 작은 것은 상관없다. 상대체만 되면 된다.

27. 가령 큰 돌을 세웠는데 돌이 옆으로 기울어져서 밑에 무엇을 받쳐서 돌을 세워야 한다면, 그 상대체는 바위도 아니고 큰 돌도 아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상대체 작은 돌이다. 큰 돌을 깨 가면서 그 밑이 받칠 필요가 없다.

<2012년 10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자를 써라. 그래야 합당한 상대체다.

2.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상대체를 들어 쓰셨다.

3. 이 시대 섭리역사에 온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상대체라서 역사를 펴 나간다.

4. 한 명만 있어도 상대체로 삼고, 뜻을 시작하여 점점 뜻을 펴 나간다.

5. 나무끼리 이야기할 때 나무는 다 내 놓고 이야기해도 뿌리는 다 내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6. 그 일의 사명자에게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것 없다.

7. 사명자가 상대다.

8. 하나님도 상대체가 없으면 뜻을 시작하지 못하시니, 상대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다. 인간을 상대체로 창조했지만, 그대에 맞는 상대체가 되어야 뜻을 펴신다.

9. 상대체는 같은 본질, 같은 모양,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진 자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남자의 상대체는 여자인데, 여자가 남자의 지체를 가지고 남자 같은 마음으로 남자같이 생활하겠느냐.

10. 남자와 구조도 같고, 마음도 같고, 모양도 같은 자는 남자다. 그렇다고 남자의 상대체가 남자이겠느냐? 아니다.
11. 구조, 모양, 지체, 생각, 마음이 달라도 자기 상대적 상대가 상대체다.
12. 꼭 자기와 일하는 자만 자기 상대체냐. 자기와 마음, 생각, 모양, 지체가 맞아야 내 맘과 맞다 하며 상대로 삼고 일하느냐. 한 남자가 자기와 몸 지체도 닮고, 자기와 생활도 닮고, 그 생각도 남성다워서 자기와 닮았다며 그와 같이 일하면 상대를 이루면서 할 일을 못 한다. 자기 마음에 맞는 자만 상대체가 아니다. 성자 본체와 본체의 마음에 맞는 자가 상대체다.
13. 하나님과 성자는 주체로서 오직 하나님과 성자에게 맞는 상대자이면 된다.
14. '심정일체'는 상대성이 된다.
15. 자기와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는다고 상대체가 아니라고 생각 말아라. 오직 '그 일에 상대적 사람인가?' 이 것이 맞으면 된다.
16. 목적을 이루는 상대만 되면 된다.
17. 사람의 흠과 점, 육성, 육의 단점... 이런 것은 상대성과 상관없다.
18. 하나님은 선지자와 중심인물 등 사람들을 쓰실 때, '상대체'인지, 그것을 보고 쓰셨다.
19. 상대자를 보고 '택한 자, 선택 받은 자, 내 짝, 내 운명'이라고 한다.
20. 사탄은 이 비밀을 아니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하도록 꾀고 무너지게 한다. 그리고 섭리인들이 하나님과 성자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가 되지 못하도록 꾀고 무너뜨린다.
21. 성자 주님께서 "내게 합당하면 쓴다." 하셨는데, 이는 "내 상대가 되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이다.
22. 물과 불은 같은 성질이 아니다. 다르다. 그런데 사람이 불 때 물과 불은 절대 상대다. 물 옆에 불이 따라다녀야 되고, 불 옆에 물이 따라다녀야 된다.
23. 극과 극이 상대가 된다.
24. 하나님은 영체로서 절대자 신이시고, 인간은 절대적인 육체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뜻을 이루시고, 이 극적인 육체로 창조 목적을 행하신다.
25. 만일 하나님의 상대가 영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을 천사같이 영체로 창조하셨을 것이다.
26.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대체로 하늘에는 없는 존재인 육체를 창조하셨다.
27. 선생을 따르는 자들도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어떤 자들은 미련하고, 어떤 자들은 욕적이고, 어떤 자들은 지혜롭다. 저마다 마음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상대체로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니,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고 희망과 기쁨으로 간다.
28. 지도자들도 교역자들도 교인들과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긴 것도 안 닮고, 하는 일의 스타일이 안 닮았어도 상대체들이니 할 수 있다고 자신 하고 정녕코 하여라.

1. 상대체만 있으면 주체는 할 수 있고, 상대체도 주체의 상대체만 되면 할 수 있으니,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여라.
2. 상대체만 있으면 사망에서도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정녕코 이룬다.
3. 상대체가 없으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아예 불가능하고 애만 타다가 끝난다.
4.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은 실상 전류의 극과 극이다. 고로 서로 잡아당긴다. 그러므로 상대가 되어 전기가 일어나서 두 존재 모두 기능을 발휘한다. 같은 극은 서로 밀어낸다. 사람도 그러하다.
5. 인간의 영체와 육체는 실상 삶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러나 영체와 육체는 상대체이므로 일평생 같이 존재한다.
6. 상대체라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7. 문제투성이라도 상대체라면, 데려와서 길러 같이 일하여라.
8. 상대체가 아닌데 같이 하는 것은 마치 열매를 열지 못하는 나무를 땀 흘려 기르는 것과 같다.
9. 만일 자기 상대체가 그 나무의 열매라면, 열매를 여는 나무여야만 상대체가 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만 보면 족한 것이다. 나무가 작든지, 나무에 가시가 있든지, 잎이 작든지 상관없다. 열매를 여는 나무이면 된다.
10. 상대가 되는 것, 이것이 문제되지 않게 해야 된다.
11.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상대체로 창조해 놓으시고 “나는 정녕 할 수 있다.” 큰소리치셨다. 상대체만 있으면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12.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의 상대라서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만 접붙이면 참감이 열린다. 그러나 다른 나무는 상대가 아니라서 접붙여도 안 붙고 열매도 안 열린다.
13. 인간은 천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대 기준자다.
14.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절대적 상대자다.
15. 사탄은 하나님의 절대적 상대체가 아니다. 고로 사탄은 인간들을 보고 “너도 하나님의 상대체가 못 된다.” 한다.
16. 시계의 상대는 시계가 아니다. 반지나 목걸이다.
17. 시계를 가진 자가 돈 가지고 또 시계를 만들겠느냐. 반지나 목걸이를 만든다.
18. 시계를 이미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시장에 가서 또 시계를 사겠느냐. 반지, 목걸이, 허리띠, 가방 등을 산다.
19. 하늘나라에는 수천억의 천사들, 곧 영체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또 영체들을 창조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없는 육체 인생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통해 영체를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영체를 가지고 있으나, 본래부터 영체로 태어난 천사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천사들과는 다른 사랑의 상대체를 창조하셨다. 곧 인간이다.
20.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상대체인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반대했다. 하나님 편을 들면서 말렸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역사를 펼칠지, 천사의 머리로는 몰랐다.

21. 종교 역사도 하나님은 상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구약역사가 끝나고, 구약은 이미 있으니 신약을 만드셨고, 또 이미 신약이 있으니 시대 신부 역사인 성약 역사를 만드셨다.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자도 자기 상대를 창조하신다. 인생도 그러하다.

2. 상대로 인하여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3. 상대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 반드시 두 개씩 두 감람나무같이 창조해 나간다.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쓰려 한다.

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삼위의 상대체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창조하신다. 이 영체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들과는 다르다. 하늘나라의 영들은 남자와 같다면, 세상에서 육을 통해 만든 영들은 여자와 같다. 고로 다르다.

5.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기 전까지는 하늘나라의 자체적인 상대들과만 창조 역사를 이루고 하늘나라만 창조해 나갔다. 영들끼리 영의 세계만 창조해 나갔다.

6. 하나님은 지상에 근본적인 상대체를 창조하시고, 이제는 절대 상대적 기쁨과 이상을 누리신다. 그리고 그 상대를 통해 지상세계 창조 역사를 계속해 나가신다. 또한 상대체 육신을 통해 창조한 영들이 천국에 가게 되니, 그 전에 천국에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계신다. 곧 성약성, 신약성, 구약성 세계들이다. 지상의 구원받은 영들로 인하여 전에 창조하지 못했던 수만 곳의 하나님 주관권 영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상대체인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으니, 그로 인해 천층만층의 영의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7. 선생이 성자 주님과 함께 산속에 있으면서 기도할 때는 따르는 상대가 없기에 월명동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상대가 없으니 만들 수도 없었다. 성자 역시 상대인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월명동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상대가 없으니 만들 수도 없었다. 선생이 복음으로 인해 상대체를 만나니, 하늘 편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따르는 자들을 통해 월명동을 만드셨다. / 이와 같이 천국의 상대 세계인 지상세계가 있으므로 그로 인해 성삼위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졌다. 성약성은 크기가 지구의 40배가 넘는다.

8.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과 있을 때는 자체 세계 창조를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후부터는 상대로 인해 새롭게 창조를 한다. 그러다 결혼하면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면서, 상대로 인한 새 창조가 계속된다. / 이와 같이 하나님도 상대체인 지상의 인생들로 인하여 그에 맞는 창조를 해야 되니, 인간을 창조하기 전보다 비교가 안 되게 천국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

9. 목적 있는 창조다. 조건 대가 창조다.

10. 하나님도 그냥은 창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어떤 대상의 이유로 인해 창조하신다.

11.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발전돼야 천국도 하나님의 뜻이 웅장하게 발전된다.

12. 자기 육신이 발전해야 자기 영이 발전된다. 이와 같이 육체인 지상에 하나님의 뜻이 발전돼야 영체인 하나님의 세계 천국도 발전하고 번창한다.

13. 섭리사도 상대가 전도하여 번창하고, 강하고, 이상적이어야 거기에 따라 무엇을 더 만들고 창조하여 발전해 가게 된다.

14. 모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상대는 되었다. 이제 모두 온전하게 웅장하게 커야 된다. 크는 대로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창조해 나가신다.

15. 자신이 성자 본체와 분체의 상대가 됐다면 이제 됐다. 이제 웅장하게 키우면 된다. 그래야 주체이신 성자 본체와 분체와 함께 웅장하게 역사를 이뤄 갈 수 있다.

16. 가령 하나님께 “하나님, 성약성에 이런 건물 하나 지어 주세요.” 하면, 지어 주신다. 말로 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자 본체와 분체의 상대가 되어서 육신의 행실로 원하는 건물을 창조해 나가면 육계에서 이루어지듯이, 천국에서도 건설해 나간다.

17. 땅에서 이뤄야 하늘에서도 이루게 된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게 된다.

18. 땅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하늘의 것도 완성되지 않는다.

<2012년 10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명 안에 생명이고,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또 생명 안에 생명이다.

2. 우주 생명 안에 태양계 생명이고, 태양계 생명 안에 지구 생명이고, 지구 생명 안에 사람이다. 사람 생명 안에 혼 생명이다. 혼 생명 안에 영 생명이다. 영 생명 안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생명이다.

3. 생명은 생명으로 싸여져 존재하고 있다.

4. ‘가장 큰 사랑’은 ‘끝내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랑’이다.

5. 사랑이 뜨겁게 불이 타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나는 사랑은 크다가 마는 과일이나 나무같이 유실되는 사랑과 다른 없는 허무한 사랑이다.

6.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도 사랑하다가 끝나면 거기서 죽은 사랑이 된다. 영원히 믿고 영원히 사랑하여 영원히 죽음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7. 세상에서 살면서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살아있는 사랑이다.

8. 가다가 끝난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서 자기와는 관계없는 사랑이다. 지금 진행 중인 사랑이어야 된다.

9.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사랑만이 살아있는 사랑이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러하고, 성자와의 사랑도 그러하고, 성자 분체와의 사랑도 그러하다.

10. 지금 교통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은 있는데 죽은 사랑이다.

11. 처음 사랑을 하듯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사랑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랑이다.

12. 다 죽어가며 신음거리는 사랑을 하니, 병들어 쓰러져 있는 몸을 보는 것과 같다.

13. 성자 주님의 신부들이 병들어 신음거리는 사랑을 하고 산다. 고로 그 사람은 절대 휴거되지 않는다. 그 분체는 아니다. 성자 주님이 짝사랑하게 하는 자는 절대 휴거되지 않는다. 병들어 신음거리는 사랑을 하면서 주님을 짝사랑하게 해 놓고, 휴거될 생각도 하지 말아라.

14. 억지로 끌어다 사랑하는 자, 사랑이 병들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끌어다가 어떻게 천국에서 같이 살면서 천국의 삶을 살겠느냐. 천국에서도 못 하고, 땅에서도 못 한다. 주는 다 알고 말해 준다.
15.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서 진정 좋아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는 자의 육만 땅에서 휴거되고, 그 영도 천국으로 휴거된다.
16. 육이 땅에서 육 휴거를 이룬 자 안에서 영 휴거도 된다. 이는 여자로 존재하는 자 중에서 신부가 결정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17. 미쳐서 돈을 벌듯이, 미쳐서 어떤 것을 좋아하듯이, 미쳐서 성자와 그 분체를 따르고 사랑해야 땅에서 육으로 육적 휴거도 이루고, 영으로 영적 휴거를 이루어 천국에 간다. 지금 휴거는 진행 중이다.
18. 사랑은 지금 진행 중인 것만 살아있는 것으로 본다.
19. 앞으로 사랑을 진행할 자, 사랑을 진행하다가 끝난 자, 사랑을 진행하다가 쉬는 자는 지금 사랑을 진행하는 자에 속하지 않아서 사랑 주관권 밖에 있다. 이들은 모두 사랑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다.
20. 지금 사랑을 진행하는 자는 신랑을 만난 신부와 같다. 지금 사랑을 진행하는 자 외에 나머지는 모두 사랑에 잠자는 자요, 사랑에 죽은 자다.
21. 겨울에 잠자는 과일나무는 가지만 앙상하게 있고, 진행 중인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가 익어 가면서 주인과 함께 이상세계를 진행하고 있다.
22. 의식 없이 섭리사만 따르다가는 언젠가 혼자 가는 꼴이 된다. 그제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하고 살았지?” 한다. 날마다 성자 주님과 그 분체가 생각나도록 밤낮으로 성자 주님과 그 분체를 쳐다보며 그와 일체 되어 사랑하자.
23.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선생님 말씀 후 잠언

1. 상대가 무엇이나? 물 따로 물레방아 따로는 상대가 아니다. 물과 물레방아가 함께 돌아가야 상대다.
2. 물과 물레방아가 만나서 같이 돌아갈 때만 사랑이 생긴다. 이와 같이 성자 본체와 그 분체와 일체 되어서 살 때만 사랑이 생긴다.
3. 각자의 사랑, 즉 홀로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사랑의 결과체를 만들지 못한다. 사랑하려면 ‘상대’와 같이 해야 된다.
4. 각자의 사랑은 사랑만 가지고 있지, 상대적 사랑이 아니라 자체 사랑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대가 되어 같이 사랑해야 상대적 사랑이 되어 사랑이 이루어진다. 남자나 여자나 각자 자기 몸과 자기 마음만 사랑하면, 이는 자위행위적 사랑이 된다.
5. 사랑은 ‘상대적 사랑’이어야 살아있는 사랑이다. 상대적 사랑이 아니면 죽은 사랑이다. 성자 주님과 상대적 사랑을 진행해야 된다. 마음·정신·생각·혼·영이 성자 주님과 상대적 사랑을 진행해야 된다. ‘진행’이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죽지 않은 사랑이다.
6. 시계가 살아서 가고 있듯이, 지금 사랑을 진행해야 된다. 성자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상대적 사랑을 진행해야 된

다.

7. 혼자 진행하는 사랑은 마치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격이다. 사랑은 자기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이신 성자 주님과 통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8. 인간의 뇌, 즉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은 ‘생명의 스마트폰’이다.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으로 하는 사랑은 최고 이상적인 혼적 영적 사랑의 실존체다. 그 사랑의 그림자 같은 사랑의 실존체는 육적으로 하는 하체 사랑으로서 살덩어리가 달는 사랑이다. 마음이 달고, 혼이 달고, 영이 달는 사랑이 최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9. ‘마음·정신·생각·영으로 하는 혼적 영적 사랑’은 ‘하체로 하는 육적 사랑’에 비해 10억만 배 이상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는 차원 높은 성자와의 사랑이다. ‘육체 사랑’은 짐승들도 한다. 짐승은 육을 움직이는 마음은 있으나, 마음의 실상체인 혼체가 없고 영체가 없어서 ‘뇌 사랑’ 즉, ‘혼적 영적 사랑’을 못 한다. ‘뇌 사랑’, 즉 ‘혼적 영적 사랑’은 영원까지 가고, 육체 살덩어리가 달는 ‘육체 사랑’은 육체가 존재할 때까지만 한다. 고로 ‘육체 사랑’은 마치 밭을 한 밭자국 내 달는 것과 같은 순간의 사랑이다.

10. 사람들은 뇌 사랑, 마음·정신·생각·영을 가지고 하는 혼적 영적 사랑을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한다. 이는 마치 포클레인을 놓고 자기 손을 가지고 삽질을 하고 팽이질을 하며 일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일에 찌들려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일에 권태증이 오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포클레인으로 순간 한 번 찍어 잡아당기면 1000명이 일하는 격이 된다. 포클레인으로 온종일 일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냐. 기계가 지치냐? 이를 알고 생각해 보아라. 마음·정신·생각·영이 지치냐? 마음·정신·생각으로 지구를 만 바퀴 돈다고 해서 지치냐? 육은 100미터만 뛰어도 지쳐서 숨을 몰아쉬다. 혼적 영적 사랑을 육체를 가지고 육적으로 하려 하지 말아라.

11. 뇌 사랑에 도전해라! 혼적 사랑에 도전해라! 영적 사랑에 도전해라! 이 사랑은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해도 해도 지치지 않는다. 영원하다.

<2012년 10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혼’과 ‘영’으로 가면, 빛으로 150년 만에 갈 거리도 20분이면 간다. 그러나 ‘육’으로 가면, 평생 가도 못 간다. ‘육’으로 하는 자는 아예 천국에 갈 생각도 하지 말아라. ‘육’으로 가다가는 평생 지구도 못 벗어난다. 그런데 기독교는 육신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고 하며, 이를 대망으로 삼고 기다린다. 실망이다. 개들 중에서도 그같이 생각하는 개는 지구 세상에 단 한 마리도 없다.

2. 선생은 34년 전부터 기독교에서 2000년 경에 재림주가 오시면 육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육은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다. 만일 육이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가면, 내가 그 날 보고 놀라서 죽을게.” 했다. 지금까지 육은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갔기에 안 놀라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다.

3. 무지자들 육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도 말하더니, 2000년이 되어서 육이 한 명도 휴거되어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도 또 재림이 연장되었다고 하면서 믿고 산다.

4. 어떻게 메시아를 믿고 사는 자들이 그렇게도 모르고 살까? 예수님은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해 나와 있다. 성경을 다시 봐라. 주님은 어떻게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휴거되는지 다시 성경을 보아라. ‘육’은 어떻게 휴거되는 것인지, 육과 영 중에 무엇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고 했는지 다시 자세히 성경을 보아라.

5. 왕이라도 자기가 말했는데 말한 대로 안 됐으면, 그 말은 아닌 것이다. 왕이 말하기를 “이 개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왕궁에 새끼들이 복적거릴 것이다.” 했다. 이때 그 개가 새끼를 못 낳을 것을 아는 자는 왕이 말한 것이니 아니라고 말도 못 하고, 혼자만 안 믿었다. 10년이 가도 새끼는커녕 쥐새끼만 한 것도 못 낳았다. 왕은 말하기를 “새끼를 낳는 시기가 연장돼서 앞으로 낳을 것이야.” 했다. 그래서 또 기다렸다. 결국 그 개는 다 커서 늙어 버렸다. 그 개는 절대 새끼를 못 낳는다. 수컷이기 때문이다. 수컷인데 임신하겠느냐. 기독교는 수컷 개를 기르면서 새끼를 낳기 기다리는 격과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고 기다리고 있다. 성경의 이치와 법을 벗어난 말을 하고 기다리니, 한 명도 휴거되지 못한 것이다. 성경의 이치와 법칙에 맞는 말을 하면 어린아이가 말해도 맞는 말이다. 선생은 우리 육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다시 오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예수님의 육신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때 돌아가셨다. 그 육신을 다시 기다리는 것은 죽은 처녀를 만지면서 “나와 사랑하자.” 하는 격이다. 죽은 자가 만진다고 해서 살아나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해 준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겠느냐. 누가 그런 말을 하면 1억 만 분의 1도 믿지 말아라. 기저귀를 찬 아기라도 살아있는 자를 키워 사랑하면, 그 아기가 자라서 사랑해 준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모르니, 사이비 종교들이 생긴 것이다. 뭘 보고 이단이라 하고 사이비라 하느냐. 모르고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 아니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모르니, 사탄이 인간을 쓰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활동하다가 그 육신들이 죽으니,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을 아는 시대의 사명자에게 잡혀 무저갱에 집어넣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

6.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시대 사명자는 성자와 함께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천적, 원수 사탄을 이기고 1000년 동안 가두게 된다.

7. 섭리사를 따르는 자들도 제대로 알면 자기와, 세상을 유혹하는 사탄과, 사탄의 육이 되어 악평하고 막고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사망에 가두게 된다.

8. 성자 주님과 그 보낸 자와 일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며 행하는 자는 이긴 자로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와 그 육으로 쓰여지는 자들을 흑암에 가두게 된다.

9. 진 자는 이긴 자로 인해 갇힌다.

10. 성자 주님과 그 분체를 맞은 자는 사탄과 악한 자들을 사망에 가둘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다. 고로 사탄과 악한 자들을 사망에 가둬버린다.

11. 다시 오신 성자를 신랑으로 맞은 신부들로 인해 사탄은 1000년 동안 사망에 갇히게 된다.

12. 온 인류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자들이 경제에 중심을 두고 역사를 펴며 돈과 부귀를 누리고 사는 구나.

13. 구세주는 장사도 사업도 안 한다. ‘오직 인간 구원’만 한다.

14. 이 세상 종교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중에 경제를 펴는 구세주는 없었다.

15. 구세주는 평생 인간 구원만 시킨다.

16. 구세주는 몸 자체가 ‘구원의 도구’라서 그 몸으로 온종일, 평생 인간 구원만 하다가 간다. 그 몸으로 돈도 안 벌고, 경제도 안 편다.

17. 나사렛 예수님은 돈이 있는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모두 나눠 주고 나를 따라라.” 했다. 경제의 구세주들도 모두 다 그렇게 했어야 했다.

18. 모르면 제 길을 못 닦고, 그 육도 영도 가시밭길로 간다.

19.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누리던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누린 환경을 영계로 가져가서 누릴 수 없다.

20.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린 환경을 영계로 그대로 가져가서 누리게 됐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던 자들은 세상에서 누리고 만들고 살았던 환경을 영계로 가져가서 누리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법을 행했기에 모두 거둠을 받아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모두 뺏기고 빈손으로 영계에 가서 그 육의 행위대로 그 영이 형벌을 받고 살게 된다.

21.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들이 세상 물질이나 유혹에 빠져 살아가다가 사명을 못 하면 하나님이 세운 엄청난 계획이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져서, 그들의 영도 기대가 무너진 영계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된다.

22. 세상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자들의 영을 천국이나 낙원에 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엣가시 같아서 그대로 두지를 않으신다. 행한 대로 갚아 주는 것이 공의다. 고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세계든지, 혼의 세계든지 마음과 정신이 흐린 상태에서 보면 생각이 잘 안 난다.

2.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자기 마음과 정신 상태에 따라서 또렷하게 보이기도 하고, 흐릿하게 보이기도 한다. 혼체가 활동해도 자기 마음과 정신 상태에 따라 혼체가 활동하는 것이 보이고, 혼체가 행한 것들이 기억난다. 어느 때는 자기 마음과 정신이 또렷하여 혼체가 또렷해도 보여 주시는 것은 성자 주님이 조종하시어 보일 것은 보여 주시고, 안 보일 것은 안 보여 주신다.

3. 사람들은 ‘사랑’ 하면, 흔히 남녀의 이성 관계로만 생각한다.

4. 육의 세계인 지상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인 천국 세계에서도 ‘사랑의 생활’은 수백 가지다.

5. 특히 천국에서는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 천국의 모든 생활 자체가 마치 남녀가 사랑 관계를 하는 것같이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게 된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을 품고 그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된다.

7. ‘사랑’이란 꼭 이성과의 육체관계로만 만족되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함께 인간의 영·혼·육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수백 가지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생활 속에서 뇌로 사랑의 만족과 충족을 느끼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8. ‘천국의 사랑’은 천국의 모든 생활 자체에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영체가 사랑을 느끼고 이루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영체 자체가 사랑의 핵으로서 선실과이며 생명나무다. 세상 ‘육체’는 영체에 비해 수백만 분의 1 정도만 느끼라고 작게 만들어 놓았다고 깨달아라. ‘영’은 몸 전체로 사랑을 느끼니, 영체로 사랑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9. 사랑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느끼는 것이 사랑이다. 똑같은 뇌신경이라도 어떤 일을 하며 극치로 치달아 좋아하면 사랑의 엔도르핀이 폭발되어 사랑을 느낀다. 이성 사랑뿐만이 아니다. 너무 좋아서 극치로 웃어도 사랑의 엔도르핀이 솟고, 누구를 극치로 사랑해도 사랑의 엔도르핀이 솟는다. 기도에 미치거나, 전도에 미치거나, 강의나 설교에 미쳐도 동일하다.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것을 미쳐서 하면, 기가 없어져서 정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10. 노래하고 춤을 추는 사람은 노래와 춤으로 사랑의 엔도르핀을 폭발시키며 사랑을 누리고 느낀다.

11. ‘뇌 사랑’은 수백 가지로 신경을 흥분시켜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육체 사랑’은 하고 나면 흥분의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뇌 사랑’은 기쁘고 좋지만 흥분의 에너지가 안 없어진다.

12. 천국에서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며 성자 주님이시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랑을 느낀다.

13.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남녀의 사랑같이 사랑을 느끼면서 사나?’ 생각하지만, 전능자가 만들기에 달려 있다. 세상에서도 생각하는 대로 사랑을 느낀다. 천국에서는 오죽하랴.

1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인간의 '육체'와 '혼체'와 '영체'를 창조하시어, 인간을 수없이 돕고 키우시어 '우리의 완성된 영체'가 삼위의 사랑으로 인해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자를 통해 성삼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좋아하며 살게 하신다. 인간이 이렇게 사는 만큼 그 영체가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삼위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게 된다.

15. '육체'는 세상에서 세상 것만 보고 들어서 영적 사랑을 모르지만, '영체'는 영의 것을 완전히 알기에 오직 사랑으로 차고 넘친다.

16. 세상 남녀의 사랑은 한계선에 처하지만, 하늘과의 영적 사랑은 영원하다.

17. 육적 사랑과 영적 사랑의 차이는 육체와 영체같이 차이가 있다.

18. 세상에서는 남녀끼리만 상대가 되어 사랑을 느낀다. 그러나 사랑은 '이성 사랑'이 다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게 해 줘야 흥분되어 좋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종일 좋은 곳을 구경시켜 줘야 흥분되어 좋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줘야 흥분되어 좋아하며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천국에서도 세상에서도 이같이 사랑을 해 주시고 사랑을 받으시며 좋아하신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의 과일이다.

19.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시에 이루어지면, 꿈속에서 남녀가 사랑 관계 하는 것이 보인다. 이는 '남녀가 사랑 관계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똑같다.' 함이다. /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영적으로 느낀다. 그러니 육적 차원에서 느끼는 것보다 더 뇌에 엔도르핀을 유발시킨다. 사랑을 남녀의 이성 사랑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1차원의 사랑이다. 혼적 차원에서는 사랑을 2차원으로 느끼고 받고, 영적 차원에서는 사랑을 3차원으로 느끼고 받는다.

20. 하나님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보시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며 말씀하셨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성 관계 하듯 한다고 하였고, 남녀가 미쳐 사랑하듯 연혼한다고 하였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물질과 명예를 좋아하는 것을 이성 관계에 중독되어 미쳐 하듯 한다고 하셨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마치 남녀가 서로 좋아 미쳐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 시대 보낸 구원자를 그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육도 혼도 영도 온전히 변화되어 휴거되지 않는 자가 없다. 고로 그 영은 천국에 갈 수 있다. / 남녀의 이성 관계, 육적 사랑만 기쁜 것이 아니다. 돌·나무·물·운동·명예·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에 미치면,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부인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그것에 미쳐서 찾아다닌다. 모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쳐라.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성자께서 세상에 보낸 구원자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며, 성자께서 땅의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하며 사는 자는 주와 연애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영은 천국에 간다.

23.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나라다. 고로 사랑을 완성한 영체가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을 사랑의 세계로 이루며 살아간다.

24. 육계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다 이해가 안 간다. 혼계에서 배워라. 누구나 육계에 속한 영체인 혼계에는 쉽게 갈 수 있다. 혼체끼리도 서로 좋으면 사랑하다가 육체와 같이 사랑한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보내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열쇠가 되어 상대의 마음 문이 따진다. 그리고 상대는 말없이 사랑의 행동을 한다.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은 육체로나 혼체로나 영체로나 완성한 대로 느낀다. 고로 빨리 혼체를 통해 영체를 더 키우고 완성하라는 것이다. 자기 영을 완성시킨 차원대로 사랑을 느끼고 천국에도 가게 된다.

2. 성장하지 않은 어린 자는 온전한 곳에 못 간다. 온전한 곳에 데려다 놔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3. 모든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것도 0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각각 다르다. 또 각자의 지능대로 느끼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도 성장한 자들이 느끼고 사랑하는 것과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과 성자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가 진리로 성장되어 삼위의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잘 느낀다.
5. 낙원과 선영계는 하늘과 땅 차이이고, 천국과 낙원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6. <낙원>은 13세 이하의 여자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 같은 세계이고, <천국>은 다 성장되고 완성된 여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 같은 세계다.
7. 성장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 마치 어린아이가 선진국으로 관광을 가서 보는 격이다.
8. 성장하려면 먼저 시대 말씀을 배우고, 성자 본체를 먼저 알고, 그다음에 성자 본체를 제대로 알아라.
9. 영계에서 사람들의 실상을 보니, 육은 장성한 자인데 그 영은 10대였다. 고로 꽃을 쫓아 좋다고 하며 이리저리 꽃이나 보고 다니고 있었다. 영이 다 성장한 자들은 큰 것을 보고 즐기며 나를 쫓았다. 그리고 나의 설명을 듣고 감탄했다. 혼과 영이 어린 자들은 역시 노는 것에 만족했다.
10. 한쪽에서는 성장한 혼들과 영들이 시대 새 역사를 만나 결혼하여 기뻐하며 사는데, 한쪽에서는 성장하지 않은 혼들과 영들이 꽃구경이나 다녔다. 구시대인들이다.
11. 성자의 재림 때 주님을 맞으려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같이 마냥 과자나 사러 다니고 꽃이나 꺾으러 다니고 소꿉장난하며 놀기에 바쁘다. 그들의 인솔자가 누구냐? 어린 유치원생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냐.
12. 시골 촌락의 다 큰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고 잔치하는데, 동네 아이들은 길가에서 제 나름대로 놀고 즐기기에 바쁘다. 이 시대가 이러하다.
13. 유치원생들은 어린데, 집은 아주 크게 잘 지어 주었다. (기성)
14. 언제 커서 성장하냐. 때 지나가니 성장된 자들을 불러다가 재림과 휴거의 혼인 잔치를 하고 역사의 갈 길을 간다.
15. 어린아이는 차원이 낮아서 같이 대화를 못 한다. 내리사랑이다. 상대적 사랑은 아예 불가능하다. 고로 어서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장되라는 것이다. 마음 그릇대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
16.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라는 말은 천국의 고유한 극치의 완성된 단어다.
17. 사람도 완성되면, 입에서 마음에서 이 단어가 솟아난다.
18. 작품도 완성돼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는 말이 나온다.
19. 자기 영, 혼, 육도 온전히 만들어 완성돼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20. 미완성된 자의 영은 미완성 세계로 간다.
21.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계시는 완성된 세계다. 고로 미완성된 영은 아예 못 간다. 천국에

가더라도 영이 얼마만큼 완성되었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른 곳에 거하게 된다.

22. 육신은 나이만 먹으면 발육되어 완성되지만, 혼과 영은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시키고 만들어야만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완성된다.

23. 완성돼야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고 작용한다. (성장하면 자기가 좋아서 사랑한다. 상대적 사랑을 한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우리 육, 혼, 영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고대하며 기다리신다. 성장된 사랑을 하면 자기가 먼저 상대를 부른다. 신앙도 성장되면, 자기가 성자 주님을 밤낮으로 부르면서 대화하고 사랑하여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지 않는다. 섭리인들은 아직까지 10대 수준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니 답답하다. 신앙도 그러하다. 나를 봐라. 밤낮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으며 주와 같이 행한다. 고로 지금도 새벽에 깨서 2시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쓰고 있다. 이것이 주님과과의 사랑 관계다. 주님이 시키신 일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24. 사람의 기쁨을 유발하는 요소는 수습, 수백 가지다. 극치로 좋아하며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사랑이 유발된다.

25.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이성 등 세상을 접하여 사랑을 얻는다. 이는 기쁨을 얻어도 영혼을 썩게 하는 기쁨이다.

26. 어떤 사람은 세상을 접해서 세상을 중심하여 사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접해서 하나님을 중심하여 사랑을 얻는다. (혼이 마음이다. 생각은 생각이 행실이다. 이것이 영계의 기본 단어다. 고로 마음으로 사랑하면, 뇌에 생각이 작동되어서 혼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된다. 상상하는 것도 혼이 하는 것이다. 상상도 마음이고 생각이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으로 범죄 해도 혼이 주를 떠난 것으로서 죄로 정하였다. 이성 사랑도 생각을 강하게 하면, 혼체가 직접 행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상대가 멀리 있어도 사랑을 행하게 된다. 생각이 그리 무섭다. 혼체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행한다. 고로 생각 실제 세계라는 것이다. 사탄은 생각을 이용해서 사람을 침범하고 다스린다. 고로 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초등학교 때 생각이 혼체라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잔디밭 위의 길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몸이 되어 생각한 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생각으로 지구를 돌고 오니, 생각이 혼체가 되어 지구를 돌고 왔다. 그때부터 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성자 주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혼체를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25. 깊이 기도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껴 보고 전능자 성자 본체와 사랑해 보아라. 혼계에서는 성자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다. 상징으로 나타나신다.

26. 여름철 더울 때 일반 물만 먹으면서 “얼음을 먹으면 정말 시원하다.”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사랑도 말로는 100% 이해시키지 못한다.

27. 육체의 사랑은 혼체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된다. 육체 사랑은 ‘말’로 사랑하는 것 같고, 혼체 사랑은 ‘실체’로 사랑하는 것 같다. 영계로 갈수록 더욱 실체와 같다.

28. 육의 세상에서는 육이 더 실감 난다고 하는데, 육은 지능과 생각이 낮아서 육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고 사랑을 해도 육의 지능인 120~160의 강도로 느끼니 약하다. 혼적 단계로만 가도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강도가 육으로 느끼는 것보다 10배, 100배 더 강하고 확실하다. 영계에 가서 보면, 육계에서 육신이 행하고 사랑한 것은 마치 애인의 그림자를 접하는 것과 같다.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랑만이 무한하다.
2. ‘참된 사랑’은 지치지 않고 연속된다.
3. 주님과 사랑의 불을 붙여야 된다.
4. 주님과 사랑의 불을 붙이고, 모든 것을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된다.

5. '마음'이 칼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한다.

6. 마음의 칼로 쳐라. 마음의 물로 쳐라.

7. 마음으로 해도 영향을 받는다.

8. 자기 마음으로 뱀을 입에 넣고 깨물어 먹는다고 생각해 보고 느낌이 어떤지 보아라.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가 쳐질 것이다. 이같이 마음으로 해도 자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

9. 눈으로만 봐도 뇌가 자극을 받아서 충격을 받게 된다.

10.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은 모습이나, 사고가 나서 생명들이 몰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11. 좋은 것을 보아라. 좋은 것을 생각하여라.

12.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뇌는 그 체질이 되어 나쁘게 버려 버린다.

13. 섭리사를 통해서 땅에서 육으로 퍼는 육신 휴거 구원 역사를 30년 이상 해 왔다. 그러나 기다렸던 자들이 아직도 모른다.

14. 하나님의 기다린 역사는 당세 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자들이 전해 주지 않으면 그 후손들까지 모르고 끝나게 된다. 그 당세에 태어나고 살아 보지 않아서 모른다.

15. 하나님의 역사가 땅에서 시작되면 그 당세에 사는 자들이 정말 중요하다. 당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시인하고 다른 민족이 계속 알려 주어야, 후대도 계속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알고 역사를 펴 나간다.

16. 예수님 당세 때 불신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후손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신하여 100년, 1000년, 2000년 동안, 지금도 계속 기다린다.

17. 우리는 성자의 재림에 대해 듣고, 배우고, 알고, 따름으로 육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성약 역사를 맞고 주님의 신부들이 되어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며 가고 있다. 그러면서 영으로 이루는 영적 휴거를 준비하며 살고 있다. 고로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 주면서 가야 된다. '후손들'이란, 몸에서 난 혈육과 우리들 뒤에 태어나서 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다. 너희 자신도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알고 참여하고, 후손들에게도 확실히 가르쳐 주어 그들도 하나님에 뜻에 인도되어 성자의 분체를 맞고 성자를 맞고 행하게 해야 된다.

18. 하나님의 뜻이 시작됐는데, 당세에 기다리던 자들이 못 받아들였기에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못 받아들인다. 위에서 선조 때 받아들여야 밑에서 후손들도 받아들인다.

19. 하나님의 기업은 신앙의 기업이며, 이는 세상의 기업보다 더 좋고 높은 아벨의 기업이다.

20. 어느 시대든지 두 종교가 존재하면서, 같은 하나님과 주를 믿으면서 흘러간다. 한 종교는 선조들부터 신앙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받아들인 살아 있는 종교이고, 다른 한 종교는 신앙이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못 받아들인 죽어 있는 종교다.

21. 이 시대도 같은 주님을 믿는데도 깨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받아들여 주님과 같이 역사를 펴고, 못 받아들인 자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22. 역사는 자기가 그 역사에 들어가서 참으로 동참하고 온전히 행하면서 가야 확실히 알게 되고, 가다가도 빗나가지 않고, 역사가 시작된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2012년 10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실상을 실상으로 깨우쳐 줄 것이 없으면, 비유해서 보여 주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며 꿈에 혼체에게 계시해 주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 보여 주기도 하신다.
2. 동물은 ‘이빨과 발톱’으로 먹이를 잡으며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만, 사람은 ‘입의 말’을 무기로 삼는다.
3. 동물은 ‘이빨과 발톱’으로 잡고, 사람은 ‘입과 마음’으로 잡는다.
4. 동물은 이빨과 발톱으로 먹이를 못 잡으면, 몸만으로는 못 잡는다. 사람은 성자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정신·생각을 못 잡으면 못 잡는다. <설명> 너희 자신을 보아라. 입으로 사람 잡는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과 정신으로 사람을 잡아 나간다. 고로 사람을 대할 때 선한 말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특히 지도자들은 생명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못 치면 안 된다. 잘 보고 쳐야 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월명동에 선생이 기른 나무인데, 자기가 볼 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여 너무 좋은 나무를 자르기도 했다. 80년 동안 기른 동그래산 뒤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였다. 한 번 자른 소나무는 그대로 끝이다. 이와 같이 말로 사람을 한 번 잘못 치면 그대로 끝난다. 말은 검이고 톱이니, 말할 때 잘해야 된다.
5.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이론과 이념과 사상으로 백성을 다스린다.
6. ‘입’으로 가시는 주님의 발길을 붙잡아라.
7. 성자 주님은 새벽에 잠만 깨워 놓고 가실 때가 많다. 그러니 얼른 일어나 기도하되, 기도만 하지 말고 입으로 성자 주님을 붙잡아라.
8. 형제들과 생명들도 입으로 잡아라. 곧 사랑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말로 잡아라.
9. 나에게는 글이 입이다. 성경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입이다.
10. 사람들은 입으로 흉년도 만들고 풍년도 만든다. 재판도 꾸며서 감정대로 한다.
11. 입 가지고 제 마음대로 거짓으로 놀리는 자는 모두 자기가 행한 대로 탕감을 받는다.
12. 어느 날 성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입을 잘못 놀려서 내 앞에 실수한 것들, 즉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은 100배로 탕감을 받아야 그 후에 다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하며 명백히 말씀하셨다. / 모두 입조심하여라. 그래야 평화가 온다.
13. 죄에 대한 탕감과 형벌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생명길을 못 간다.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한 때 두 때 반 때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후에 복직하여 다시 사명을 하게 된다.
14. 각 기관, 각 부서 지도자들이 화평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일하니, 지금 그로 인한 탕감과 형벌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화평하지 못한 대로 자기가 심적 고통, 정신 고통, 지옥 고통을 그 차원대로 받는다.
15. 선생이 이를 알고 기도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절대 탕감을 받으며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사탄이 놔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죄를 지은 자가 탕감을 받는 것은 법이라서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고 하셨다.

16. 탕감 없이 형벌 없이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신약 때 나사렛 예수님도, 성약 이 시대 사명자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다.
17. ‘말’과 ‘행실’로 인하여 죄를 짓고 100배나 탕감을 받는다. 고로 하나님은 그에게 계획하신 일을 취소하시고, 그가 죄로 인한 탕감을 받아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 기간을 연장한 후에 다시 일을 하게 하신다.
18.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했다. 이 말씀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평하지 말고, 말을 정말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
19. 재판할 때도 자기가 말한 것을 가지고 한다. 가령 “내가 죽이려고 했었다.” 하고 말하면, 안 죽였어도 “살인하려 했구나.” 하고, 그 말이 죄가 되어 몇 년씩 탕감받고 형벌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
20. 거짓말하는 자는 ‘참말’로 잡고, 사망으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잡아라.
23. 하나님도 주님도 하나님과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참여하고 행할 때만 돕고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면 역사하지 않으시니, 더욱 역사를 불신하게 된다.
24. 하나님의 대역사, 곧 자기 육과 영이 구원받아 지옥을 면하는 역사에 와서 열심히 하다가 손해를 봤다고 하며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잔칫집에 왔다가 누가 발 밟아서 화난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격이다.
25. 잔칫집에서 누가 마음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기분 상한다며 10년이나 기다린 잔칫집에서 나가는 자들은 그 마음이 유치원생같이 유치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그같이 얕잡하게 대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면서 사는 자들이다.
26.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며 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기도하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일 난다. 아주 큰일 난다.” 하셨다.
27. “성경 역사를 보아라.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며 산 자들은 모두 큰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천사장 루시엘도, 아담과 하와도, 가인도, 노아 때 함도, 노아 시대 사람들도, 소돔 땅의 사람들도, 롯의 아내도, 모세 때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도, 하만도, 가룟 유다도 자기 기분에 출렁거리면서 살다가 결국 큰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8. 이 시대도 그러하다. 자기 기분에 마음 출렁거리며 산 자들은 섭리사에서 쫓겨나고 갖은 고통을 당했다. 이 시대 개인, 민족, 세계가 자기 기분에 마음 출렁거리며 살다가 모두 큰일들을 당했다.
29.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마음과 생각이 일체 되어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

<2012년 10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말할 때 ‘사랑의 말’로 교훈해라. 권위를 가지고 책망 조로 입을 놀리는 자는 다 탕감받는다. 억울하게 100배 이상 받는다.
2. 하나님의 <말의 법>을 알아라. 지금은 신부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엄하다. / 말은 그 사람이다. 고로 말하면 그 사람이 실제 행한 것으로 본다.
3. 말을 함부로 한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육신이 살았어도 사탄이 그 혼과 영을 데리고 가서 혀를 빼서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혀를 빼서 칼로 난도질한다. 그러다 회개하면 내보낸다. 그러나 육신은 소경이라 그것을 모른다.
4. 영계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림 작품으로 그려 놓았다. 재미로 그린 것도 아니고, 겁주려고 그린 것도 아니다.

실상이 그리하니 깨닫고 고치라 함이다.

5. 지혜자는 정말 지혜롭게 혀로 짓는 죄를 안 짓는다.

6. 섭리사에서 무섭게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나간 자들이 많다. 혀로 죄지은 것은 혀로 대가를 받게 된다.

7.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지체다. 그 귀한 입으로 죄짓지 말아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샘과 같은 하나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할 때는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평소 때는 그 입에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라. 섭리인들은 모두 성자 주님의 신부들이라서, 성자의 마음에 거슬리면 탕감을 받아야 된다. 선생은 안다. 아니까 묵시와 계시를 쓰지 않느냐.

8.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나 성자의 신부라도 누구든지 말로 신부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칼질하면 천법, 신부법, 성자법에 의해서 절대 탕감받아야 된다.” 하셨다.

9. 지난날 생각해 보아라. 말을 함부로 해서 그같이 형벌받았다. 형벌이 끝난 다음에야 다시 일하지 않느냐. 어떤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해서 형벌을 받고도 또 말을 함부로 한다. 회개해라.

10. 입이 가벼워 참지 못하는 자는 절대 큰일을 못 한다.

11. 입을 가볍게 놀리는 자는 성자 주님도 그를 멀리하시고 하늘의 비밀도 안 주신다.

12. 섭리사에서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선생에게 온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자가 또 있느냐. 그 혼체는 이를 알고 선생에게 와서 “내 욕이 그같이 했습니다.” 하고 고한다. 그러니 섭리사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선생이 옆에 있는데 입을 벌려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라.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하겠느냐.

13. 누가 말을 함부로 해도 분체는 성자의 몸이라서 참고 십자가를 저 주지만, 본인은 100배나 형벌을 받게 된다.

14.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섭리사 신부들 중에 꼭 천국으로 휴거될 자인데, ‘말’ 한 가지 때문에 안타깝게 휴거에서 제외된 자가 많다.” 하셨다. 만일 지금부터 100% 고친다면 어떠냐고 물으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00% 휴거된다.” 하셨다.

15. 상대를 사랑하면 그같이 말하지 않는다. 고로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 죄까지 지은 자가 된다.

16. 자기는 교훈으로 말했어도 듣는 자는 상처 받고 낙심한다. 자기 양심은 다 안다. 껄끄럽게 말했는지, 좀 아니꼽게 무시하면서 말했는지 자기 양심은 다 안다.

17. 다윗은 혀로 자기를 칼질하는 자를 위해 참고 기도하니, 그 복이 자기에게로 와 버렸다고 했다.

18. 자기를 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위해 참고 기도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 온다.

19. 이 시대 위대한 신부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자기 마음을 중심하여 형제에게 말의 검을 빼서 쏘이지 말아라.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성자 주님과 선생이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서 말씀의 검을 뺏는다. 또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서다.

20.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하는 자가 되어라. / 만일 입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죄를 지었다면, 먼저 기도로 회개한 다음에 그 형제에게 가서 회개하여라. 안 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녀나 자기 가정에 화가 돌아간다.

21. 다윗은 “오늘도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며, 기도 첫마디에 자랑삼아 기도했다.

<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한 마디 말을 잘못해 놓고, 그것을 덮으려고 백 마디 한다.
2. 말은 새끼를 까듯이 까 나간다.
3. 비밀의 말을 아예 입에서 내놓지 말아라. “너만 알아.” 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 친한 사람에게 또 “너만 알아.” 하니, 이렇게 하다가 섭리사 끝까지 번져 나간다.
4.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경계하고 멀리하여 광야의 부영이가 되게 한다.
5. 말을 하되, 평소 생활 속에서나 단상에서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하는 자의 그 욕과 영을 영계에서 보았더니, 빛나는 생명길로 가고 있었다. 길 좌우에는 사시사철 열매를 여는 나무가 있었고, 배고프면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길을 가고 있었다. 욕계에서는 형제들이 그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었다.
6. 특히 성자 분체와 친하다고 자부하며, 그 권한으로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이 있다. 분체와 욕계에서 못 만나서 못 친하면, 기도해서 혼계와 영계로 더 친한 자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7. 어떤 사람은 선생의 욕을 한 번도 못 만나고,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생일 맞듯이 한두 번 보니 보고 싶어서 기도만 열심히 했다. 그러니 그 혼도 영도 신령하여 자주 보니 아주 친하다. 그 욕에게도 알려 주어 알게 되었다.
8. 말의 공적자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셔도 모든 자들 앞에 세워 주시며, 늘 말로 은혜를 주도록 주님의 몸으로 쓰신다.
9. 말을 아름답게, 예쁘게, 천사같이, 사랑으로 하도록 거울을 보고 웃으면서 늘 연습했다가 날이 새고 때가 되면 나가서 그대로 하여라.
10.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여라. 자기 말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주님의 심정으로 말하여라.
11. 진실 되고 은혜 있는 말을 선포하면, 병든 자도 낫고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12. ‘말’로 살인도 하고, ‘말’로 생명도 구한다.
13. 말실수를 안 하려면 진정 기도하여라. 말을 은혜롭게 하려면, 형제에게 어떻게 말해 주냐고 주님께 꼭 물어보고, 성자 주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성자 주님께서 자기 마음에 들어와 말씀하시게 하여라.
14. ‘입’으로 잡기도 하고, ‘입’으로 먹기도 한다.
15. 속 시원히 말하면 자기는 좋은데, 상대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보통으로 한다. 이런 자들은 자기 말로 인해 자기 영이 더욱 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자기 욕이 사탄의 욕으로 쓰여지는데 이것을 모른다. 또한 듣는 자들도 그를 멀리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한다.
16. 100년 동안 사랑하며 같이 살자고 한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니, 이혼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이다.
17. 성자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축복해 주셨는데, 말을 함부로 하여 그 축복을 못 받고 뺏긴다.
18. 말을 지키면 평화가 오고, 염려할 것도 없다.

19. 말을 함부로 하면, 그 혼과 영이 영계에서 법을 어겼다면 묶여 구속된다. 그런데 육은 잘 모른다.
20. “오늘도 형제들을 만나서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기도하여라.
21. 혼자 투덜대면서 죄짓지 말아라.
22.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하나님과 주님께 막말했다가 10년 동안 고통받고 회개하여 벗어났다고 했다.
23.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에 대해서 불평하며 말을 함부로 하다가 영영 못 들어갔다. 하늘을 원망한 죄는 회개할 기회도 안 주셨다.
24. 노아 때 범죄 한 자들은 그 육이 심판을 받고 죽었다. 그 영들은 2400년 동안 사망의 영계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그때도 말을 함부로 하며 주님을 대한 자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다.
25.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고 가서, 평생 축복받고 살았다.
26. 같이 섭리사를 오다가 떠난 자들은 거의 다 말을 함부로 한 자들이었다. 그때는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함부로 하여 자기 화는 풀어졌겠지만, 결국 그 대가의 길을 가야 했다.

<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짐승은 ‘이빨’로 먹을 것을 잡고, 싸울 때도 ‘이빨’로 싸운다.
2. 사람은 ‘입’, 즉 ‘말’로 잡는다.
3. 나 성자를 ‘말’로 붙잡아라.
4. 짐승은 ‘이빨’이 무기이고, 사람은 ‘말’이 무기이다.
5. 들판에 나가보니 모두 들개들이다. 집개가 집을 나가면 들개가 된다.
6. 집개는 주인 따라서 집에서 살고, 들개는 주인 버리고 들에 가서 산다.
7. 들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니, 사냥꾼들도 떼를 지어 사냥하러 다닌다.
8. 주인과 함께 먹던 집개가 왜 들개를 따라가느냐. 주인이 싫으니 그러하다.
9. 들개가 되면 주인이 주는 밥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들개들은 주인이 정성스레 기른 가축들을 잡아먹는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에게 사냥 당하게 되고, 혹은 강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10. 들개는 사람보다 이빨이 강하고 무섭다. 사람이 못 당한다.
11. 들개가 이빨로 물고 싸우면 사람이 지지만, 사람은 머리로 싸우니까 결국 이긴다. 들개가 멀리 있어도 칼과 총과 활과 각종 몽둥이로 싸워 이긴다.
12. 들개는 누구냐. 하늘 역사를 버리고, 역사의 주인을 버리고 간 자들이다. 들개와 싸워 이길 칼과 총과 활이 무엇이나. 기도다.

13. 기도가 총이고, 활이고, 검이다.

14. 들개, 여우, 염소, 늑대는 모두 들짐승이요, 야수다.

15. 들개들도 야수들도 동물보호법으로 보호하지만, 환경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가 결국 죽음의 덫이 된다.

16. 들개를 돈 주고 사오느냐.

17. 어느 때는 <은혜>를 ‘물’로 보이시고, 어느 때는 <환난 풍파>를 물로 보이신다.

18. 어느 때는 <장애물>을 ‘물’로 보이시고, 어느 때는 <말씀과 은혜>를 ‘물’로 보이시어 샘물과 폭포수로 보이신다.

19.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고 했다(계 16:12). 이때 은혜가 말랐기 때문이다. 은혜가 마르면 육적인 적이 오고, 영적인 적인 사탄이 온다.

20. 사람에게는 입이다. 말이다. 글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것을 가지고 목적인 바대로 잡는 것이다.

21. 입으로, 즉 진실하고 온전한 말로 회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여라.

22. 전도도 입으로 한다. 강한 입, 즉 심정과 진실의 말이 생명을 놓치지 않는다.

<2012년 10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마지막 때는 지구 멸망이 아닌, 자기 영혼의 멸망의 때다.

2. 욕신이 살아 있어도 ‘영’은 심판받고 사망에 처한다. 어떤 자의 영혼은 그대로 영원한 사망의 세계에 처해 살기도 한다.

3. 말세의 심판은 지구 멸망이 아닌 영혼의 멸망이다.

4. 자기 영혼이 멸망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욕신이 힘써 자기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된다.

5. 성자 본체를 알고 인정해야 성자와 통한다.

6. 사탄이 쫓을 때, 그 꾀에 동의하지 말아라. 이는 책임분담이다.

7. 말씀을 들으면서 성자 주님을 맞는 것이다. 말씀 안에 성자 주님이 계신다.

8. ‘말씀’ 안에 성자 본체도, 분체도, 시대도, 재림의 비밀도 다 들어있다. 고로 말씀을 잘 들어라.

9. ‘말씀’ 타고 성자 주님이 오신다. 성자 주님은 선생에게 처음 오실 때도 말씀하면서 오셨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다시 오신 주님을 맞았다. 신부가 되어 맞았다.

10. 성자께서 그 본체를 통해 말씀한 것을 믿고 행한 것이 성자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을 뺏기면, 성자를 뺏긴 것이다.

11. 말씀은 사랑이다. 고로 말씀의 터전 위에 세운 사랑이어야 주님과 사랑이 이루어진다.

12. 말씀으로 주를 맞아 말씀으로 주를 증거하게 된다.

13. 말씀 모르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그 육신 통해 성자 주님이 오신다.

14. 말씀을 받은 것이 성자를 받은 것이다. 휴거도 말씀 따라 된다.

15. 재림 주관권에 들어온 것도 ‘말씀’ 때문이다.

16. 말씀 귀히 여기고 듣고 행하여라.

17. 구세주는 말씀 가지고 온다.

18. 구원하려면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구원이다.

19. ‘말씀’을 네 육신으로 삼고 살아라.

20.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말씀’을 넣고, ‘말씀’을 네 애인으로 삼고 살아라.

21. 말씀이 곧 성자다.

22. 이 시대를 ‘말씀’으로 잡아라. 그것 외에는 없다. 아담 하와는 ‘말씀’을 뺏겼기에 4000년 동안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23. 매일 말씀을 100% 배워라. 10년, 20년, 30년 동안 섭리사를 따라오며 새 말씀을 듣고 믿었어도 말씀의 근본을 모르느냐. 일주일만 확실히 배우면 확실히 아는 말씀이며, 하루만 제대로 듣고 믿어도 될 간단한 말씀이다. 시대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사망으로 가는 영이다. 고로 시대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을 불신하자. 그 중에 더러는 이미 사망에 가서 그 영이 짐승이 되어 사는 자들도 많다. 수박 겉은 싱싱해도 갈라 보면 썩어서 썩아 냄새가 난다. 이와 같이 인생 육신은 멀쩡해도 그 영은 썩어서 끝난 자들이 많다.

24. 말씀을 모르는 자는 쪼개져서 이미 천리나 떨어져 나갔다.

25. 성자 주님은 그 시대에 성자의 육으로 삼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가 곧 ‘오리라.’ 한 자다. 성자의 육이 된 자를 믿고, 성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신부로 부활되어, 그 ‘육’이 땅에서 휴거되고, 그 ‘영’도 하늘로 휴거된다.

26. ‘기도’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전화통이다. 고로 기도의 전화를 걸면 만난다. 또한 ‘기도’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영적 문이다. 고로 기도의 문을 열면 주님을 만난다.

27.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 문제는 오직 시대 구원자가 대신 희생함으로 그 죄를 속량해 준다. 그러므로 시대에 죽을 자들을 살려 준다. 그리고 또 구원역사를 펴 나가는 것이다.

28. 시대 구원자는 성자 주님 앞에 조건을 세워 첫 신부의 열매가 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주님 앞에 신부의 열매가 된다.

29. 예수님 때는 구원자인 예수님의 육이 죽음으로 그 육을 잃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이 시대는 시대 사명자가 살아서 이 시대를 따르는 자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

30. 올해까지 저마다 만들어진 그대로 휴거된다고 생각해라. 우주선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발사하면 중간에 팽하고 폭발하게 된다.

31. 말씀을 듣고도 가슴 뜨끔하게 감동받지 못하면, 마음·정신·생각·영이 마치 꿈에서 못 깨어난 것 같아서 전환이 안 된다.

32. 집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자기 애인이 깨워도 못 일어나니 때리고 물을 부으며 깨웠다. 고로 놀라서 뛰어나가서 살았다. 나머지 친구들은 깨워도 안 일어나서 그냥 나왔다. 애인이 맞을 때는 곱하게 생각하며 헤어지려고 했으나, 무너진 집을 보여 주니 얼싸안고 울면서 감격해 했다. 죽은 친구들의 시체를 보여 주니, 더 감격해 하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안은 채 놓지 않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외쳤다. / 성자 주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시대 말씀을 외쳐 주어라.

33. 사망으로 죽은 영혼들을 보고 와야 더 외치게 될 것이다. 사망 지옥에 가서 보면 쇼크 받는다.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이 불속에서나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곳에서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기도 행여 민다가 안 믿어서 저리 될까 두려워하며 살게 되기 때문이다.

34. 생활 속의 사랑이다.

35. 순간 자극적인 분위기 사랑은 육적인 사랑으로서 후다닥 하고 끝난다. 그러면 다시 사랑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생활 속의 사랑'은 오직 흔적으로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사랑도 길을 잘 들여놔야 된다.

36. 온종일 생활 속에 주와 대화하여라. 마치 자기 옆에 있는 애인과 말하듯이 성자 주님과 대화하며 생활 속에 주님을 자기 마음·생각·심정 속에 넣고 사랑하는 것이다.

37.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사는지 해 보아라. 못 하면 못 하는 자요, 하면 하는 자다.

<2012년 10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 주님의 응답을 받아도 육의 법으로 알기에 모른다. 영의 법으로 알아야 주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알게 된다.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1. 육의 법에도 마음에 속한 법이 있고 행실에 속한 법이 있듯이, 육의 법이 있고 영의 법이 있다.

2. '육'은 행동한 것이 죄가 되거나 의가 되지만, '마음'은 생각한 것에 따라 죄가 되고 악이 되고 불의가 되거나 혹은 의가 된다. '영'도 마음의 법과 같다.

3. 가령 영에게 "이리 와라." 했다. 육의 법과 같은 줄 알고 "이리 와라." 말한 것이다. 영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어도 마음에 순종했으면 실천한 것이 되고 순종한 것이 되기도 한다.

4. 가령 사랑하는 자에게 별을 따가 준다고 했다 하자. 마음에 진심이면, 육이 행실로 별을 따오지 않았어도 행한 것이 된다. 육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영의 법도 그와 같은 것이 있다.

5. 가령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테니 집에 와 달라고 했다 하자. 주님이 마음에 진정 대답하였으면, 주님의 몸이 안 와도 해 준 것이 된다. 이는 주님 자체 법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르고 하니, 그에 합당한 대로 해 줄 뿐이다.

6. 주님을 불렀을 때 사람처럼 대답하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게 대답했어도 대답한 것이다. 영의 법대로 하신 것이다.

7. → 목적은 목적이니, 목적만 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8. 직접 말을 안 해도 몸에 열음을 닿게 해서 열음이라고 느끼게 했으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

하거나 대답하실 때, 거의 영의 법에 의해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 느끼고 깨닫게 하신다. 자신이 기도하여 깊은 영계에 들어가 보면, 육으로 말만 했는데 혼과 영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 보인다. 주님은 영의 법으로 하신다. 고로 거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깨달도록 할 말을 전달하신다.

9. → 목적만 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10. 육계에서는 마음으로만 형제를 미워했는데, 영계에 가서 보면 실제로 그 형제를 죽이는 행실로 보인다.

11. 사람들은 육의 세상을 대하듯 영의 세상을 대한다. 고로 영의 세계에서 응답을 받았어도 실감하지 못한다.

12. 가령 자기 나라와 풍속이 다른 외국인에게 대접을 받으면, 자기 나라 풍속같이 생각하기에 대접을 받았어도 모른다. 이와 같이 육계와 영계도 다른 세계라서 주님이 해 주셨어도 육계로만 생각하니 모른다.

13. 외국에 갔는데 외국 친구가 같이 아침을 먹자고 해서 갔다. 그런데 커피 한 잔에 빵 몇 조각을 주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식사하기 전에 먹는 애피타이저인 줄 알았다. 그것을 먹고는 자기 나라같이 밥, 찌개, 국, 10여 종류의 반찬들이 더 나올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런데 외국 친구는 “이제 출근해야 하니, 나가자.” 했다. 고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왔다. / 그 후 그 사람은 자기 나라 친구들에게 그 외국 친구와 있었던 일을 말하면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갔더니 안해 주더라.” 하며 험담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 했다.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았다. 자기 나라 생활만 생각하지 말고 외국 생활을 알아야 된다. / 이와 같이 성자 주님은 영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아는 자는 깨닫는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가 아니다.

14. 영의 법은 간단하다. 육의 법은 복잡하고 푸짐하다.

15. 영계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깨닫게만 해 준다. 이것이 영의 법이기 때문이다.

16. 기도해서 주님께 이야기하면, 주님은 사람같이 나타나 말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깨닫게만 해 주신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17. 어느 때는 주님이 마음에 스치기만 하며 해 준 것 같은데, 실상 주님은 영의 법대로 확실히 해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라서 못 깨닫는 것이고, 혹은 자기 마음이 닳아져 있지 않아서 수증기가 낀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18. 영을 강하게 느끼려면 영에 신령하고 강해야 된다. 또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예리하게 하여 정신일도 해야 된다.

19. 정신을 바짝 차린 데다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이 제대로 확실하게 들린다.

20. 마음·정신·생각이 집중됐을 때,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적 말씀이 마음에 잘 들린다.

21. 영계의 것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

22. 주님의 말씀은 영의 법으로 응답 받기에 육의 법으로 이해하면 응답 받아도 모른다.

23. 영계 법은 영계 법으로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24. 신령한 세계의 것은 신령한 영으로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

25. 기도하여 신령해야 영의 세계를 알지, 육으로는 모른다.

26. 성자 주님은 신령한 존재다. 고로 우리가 육으로 대하면 모른다.

27. 육에 속한 자는 자기에게 신령한 세계가 임해도 모른다.

28. 외국인이 자기에게 인사해도 그 나라 언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듯이, 영의 법을 모르면 주님이 영의 법에 의해 역사하셔도 모른다. 신령하면 안다.

<2012년 10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생각하면 내 길로 가진다.
 2. (좋은 잠언 - 주님의 음성)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길로 가진다.
 3. 주가 생각해야 주의 길로 가진다.
 4. 주가 생각하게 하려면 마음을 비워라. 마음 그릇만 주께 주어라.
 5. 자기 마음과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라.
 6.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 마음이다.
 7. 자기 생각은 너무 차원이 낮아서 금방 안다.
 8. 주의 생각은 주께로부터 오고, 자기 생각은 자기 마음에서 솟는다.
 9.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모르느냐. 자기 마음과 주의 마음도 모르느냐.
 10. 주의 일을 하지만 자기 마음으로 하면 자기 길로 가게 된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여라.
 11. 주의 마음으로 주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12. (주님께서 선생에게 하신 말씀) 네 앞의 전자를 보아라. 자기 마음대로 큰 사명을 가지고 행하다가 그 영혼이 죽었고 이제 그 육신마저 죽어 끝나지 않았느냐. 내가 37년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라 하고 재림주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1. 하나님의 뜻이면 한 때 두 때 반 때의 하늘 법에 해당되어 끝난다.
 2. ‘꿈’도 풀지 못하면 소용없고, ‘성경’도 풀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3. 가령 꿈에 물고기를 잡는 꿈을 꾸었다 하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바닷가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왔다. 그리고 꿈을 풀었다고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 그러나 꿈에 본 물고기는 실상 자기 사랑하는 여자였다. 그 날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인연을 맺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 남자가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사이에 사랑하는 여자가 왔다 갔다. 고로 인연을 맺지 못했다. / 꿈도 못 풀면 헛일이듯이, 성경도 못 풀면 헛일이다. ‘구름 타고 재림주가 온다.’라는 성경 말씀을 못 풀고 구름만 쳐다본 사람은 메시아가 그 날 청중 구름을 타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나타나도 모르고 못 만난다. 고로 그 날로 끝난다. 이 시대가 성경을 못 풀어서 그리되었다.
 4.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면 행하지 못하여 헛일이다.
 5. 한번은 귀뚜라미가 내 방에 들어와서 경충경충 뛰기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했더니, 뛰다가 구석으로 들어갔다. 귀뚜라미가 뛰는 모습을 보며 ‘왜 뛰었나?’ 기도하며 풀었다. ‘좋은 일이 있구나!’ 했다. 이날 사람을 만나 좋은 소

리를 듣고 ‘동물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라는 성자의 계시 말씀을 실천하여 기쁜 일을 맞게 되었다.

6. 하찮은 귀뚜라미만 뛰어도 번뜩 깨닫고 풀고 실천하여 얻을 것을 얻고 소원을 이룬다. 하물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행한다면 얼마나 영원한 소원을 이루겠느냐. 반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못 풀면 영원한 손해를 보는 것이다. / 나는 성자 주님께서 귀뚜라미를 보내어 계시해 주심을 알았다. / 주님은 까치, 까마귀 등 수만 종의 만물로 계시해 주신다. 모두 계시해 주시는데 안 배워서 못 푸는 것이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으로도 계시하신다.

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잠언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생시로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계시해 주신다.

8.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한 후에 누구에게 어려운 일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 사람이 “그건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부탁했으니 한 번 의논해 볼게.” 했다. 3일 후에 회사에 가 보니, 그 일이 안 됐다고 명단에 붙어 있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까치가 와서 계속 짹짹거리서 ‘까치가 나를 위로하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후에 다시 알아보니, 그 일을 처리하는 자가 “내가 실수했어. 말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하고 알겠다고 했다. 결국 합격되어 자기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 이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선생에게 편지가 와서 기도하는데, 내게도 까치가 짹는 소리가 두 번 들렸다. 까치가 공중을 날아다니다가 짹짹 짹는 소리였다. 그때 즉시 깨닫고 ‘되겠구나.’ 했다. 그 후 편지가 온 후에 확인했다. 서로 까치 소리로 확인하도록 성자 주님은 신기하게 역사하셨다. / 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해 주었다. “나도 기도할 때 까치 소리를 들었다. 네가 낙심할 때 잘된다는 것을 확인하라고 까치가 짹어 준 것이다. 나는 반가운 그 소리를 듣고 잘될 줄 알았다.” 했다. / 신기한 것은 내게 와서 짹는 까치가 그 사람에게 가서도 짹었다. / 까치도 도망치지 않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명령받고 요나처럼 도망치다가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과 주님이 시킨 사명을 잘하여라.

9. 한번은 까치가 창밖에서 짹어 댔다. 몸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가 들렸다. 까치가 심부름으로 온 것을 깨닫고 “오늘 누가 나 만나러 왔니?” 했다. 그랬더니 까치가 짹는 소리로 나를 깨닫게 했다. 까치는 “누가 여기 왔다 가지만 면회를 못 하고 못 만나고 가니, 대신 할 말을 전해 달라고 해서 왔다.” 했다. 내가 까치에게 “누구냐?” 하니, 까치는 이름을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까치에게 “이제 이름도 알고 다녀라.” 하며 “편지가 오겠지. 알았다. 수고했다.” 하니, 더 이상 까치 소리가 안 들렸다. / 그 후에 쪽지 편지가 왔다. 선생 있는데 왔다가 정문에서 기도만 하고, 까치가 있기에 주님을 부르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에게 가서 못 만나고 간다고 전해 주라고 했다고 했다. 그래서 며칠 전 내가 왔다가 간 날에 까치가 내게 와서 일곱 번 정도 짹다가 갔다고 했다. 내가 까치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했다. 확인이 됐다. / 자기가 만물과 대물방언을 하면, 주님은 까치를 통해서도 심부름을 시키시고, 개미나 각종 만물을 통해서도 심부름을 시키신다. 각자 자기 실력대로 알아보고 알아듣는다.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일꾼이 없으면 표가 나지만, 노는 자가 없으면 표가 안 난다. (→ 노는 자 :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두고 말씀하심.)

2.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세상이 아니다. 고로 사명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믿는 만큼 일을 한다.

3. 기도가 열쇠다. 고로 ‘기도’라는 열쇠를 잃어버리면 문을 뜯어내고 열어야 된다.

4. 깨달은 자가 자기 생명도 구하고 남의 생명도 구한다.

5. 욕이 떨어져서 살게 되면 마음도 떨어져서 살게 된다. 범사에 소통과 교통이다.

6. 산 자가 먼저 소통한다.

7. 죽은 자는 잠자는 자 같아서 세월이 가도 모른다. 잠을 깬 자가 먼저 잠자는 자를 깨워야 된다.

8. 사람은 정신이 살아 있는 만큼 행한다.
9. 자기 인식으로 하면 못 한다.
10. 항상 매일 성자의 인식으로 살아라.
11. 자기 인식으로는 자기 살기에 바쁘다.
12. 자기 인식을 안 버리면 옳은 것을 들어도 머리에 안 들어간다.
13. 올바른 주의 인식을 가지고 행하는 자와 같이 행하기 전에는 그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한다.
14. '마음'으로 가는 길이 다르고, '몸'으로 가는 길이 다르다.
15.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깰 때, 거의 마지막 것만 생각한다.
16. 꿈도 두 가지 종류다. 자기 혼체가 육에 속해 본 것이 있고, 자기 혼체가 영에 속해 본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는 다르다.
17. 자기 혼체가 육에 속해 꾸는 꿈은 모든 사람들이 꾸는 평범한 사몽이다. 이는 육신 속에 있는 마음·정신·생각의 상태가 그대로 꿈으로 반영된 것이다.
18. 혼체는 육체같이 존재한다. 육에 속한 혼체는 육이 초자연적 상태에서 하나의 구름같이, 무지개같이, 그림자같이 활동하는 것을 본다. 짐승이 이 혼체로 존재한다.
19. 자기 혼체가 영에 속해 꿈을 꾸야 영몽을 꾸서 영의 것을 보게 된다.
20. 잠자고 나서 꿈에 본 것을 잊어버려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생각이 난다.
21. 잠잘 때 자기 혼체의 급대로 혼적 세계를 보게 되는데, 기도하고 신령해야 자기 혼체가 많이 활동하여 많은 것을 본다.
22. 자기 혼체가 꿈에서 10군데, 20군데를 돌아다니며 많이 활동하나, 몇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정신적으로 기억하니 잘 생각나지 않는 것이다. 혼적 상태에서 기억나도록 깊이 기도하면 많이 생각한다.
23. 꿈에 자기 혼체를 활동하게 하려면 첫째, 신령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둘째, 잠자기 전에 기도하여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잘 조종해 놔야 된다.
24. 꿈에 흐리게 보이는 것은 혼의 마음이 또렷하지 못해서다.
25. 잠을 안 자도 깊이 기도하다 보면 또렷하게 보이고, 영안이 열리면 생시같이 보인다. 이는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데, 혼체가 마음으로 역사하여 보이기 때문이다.
26.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본다.
27. 육의 기억도 자기 마음과 정신 상태에 따라 또렷하게 생각나기도 하고, 흐릿하게 생각나기도 한다.
28. 자기 혼체가 특별하지 않은 곳에 가는 것은 자기 혼체의 급이 낮기 때문이다.

29. 육체가 자기 혼체를 조종하기도 하고, 혼체가 자기 육체를 조종하기도 한다. 자기 마음·생각·정신의 수준에 따라 육체가 자기 혼체를 조종하기도 하고, 혼체가 자기 육체를 조종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체는 자기 혼체에게 조종 당하지 않고 자기가 혼체를 조종한다.

30. 금식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는 자기 혼체가 또렷하게 활동한다.

31. 혼체는 자기 육신 생활의 반응이다.

32. 육신이 철저히 행해야 된다. 육신이 철저히 행하면 자기 혼체가 그와 같이 철저히 행한다.

33.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기도한 대로 영계를 보고 말했다.

34. 선지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계를 못 보고, 평신도도 기도를 깊이 많이 하면 영계를 많이 보게 된다.

35. 성자 주님과 '사랑 일체의 삶'이 최고로 차원 높게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10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나이 먹어 연륜만 많고 모르면 빈 자루다.

2. 알고 행해야 나이도 연륜도 빛이 난다.

3. 아는 것도 실천하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뇌에서 사라진다. 실천해 놓으면 월명동 돌, 소나무같이 실제로 존재하여 늘 만민이 쓰게 되니 현실이 된다.

4. 생각난 것을 실제로 행해야 실제로 남는다.

5. 행하면 존재시키니, 더욱 확실하여 굳건하게 더 행하게 된다.

6. 성자 주님과 대화한 것도 행하지 않으면, 꿈같이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다.

7. 살았을 때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던 나무도 죽으니까 멋도 아름다움도 없고 초라했다. 옆의 살아 있는 나무가 작아도 빛이 났다. / 신앙도 죽으면 초라하고 빛이 없고 멋도 아름다움도 사라진다.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8. 생명의 값이 크다. 그 빛이 크다. 그 가치가 크다.

9. 젊은 사람이라도 육신이 죽으면, 얼굴빛이 사라지고 몸에 윤기가 없어져 밤에 꺼진 등불과 같다.

10. 신앙도 죽은 자를 보면 모두 변해서 아름다움도 가치도 멋도 빛도 사라져, 산 자가 작아도 빛이 난다.

11. 죽으면 시체다.

12. 시체를 보면 정이 가지 않고 무섭다.

13. 산 자는 빛이 난다.

14. 시체가 살아나기 전에는 산 자와 죽은 시체와 안 바꾼다.

15. 신앙이 죽어 장사 지낸 시체에게 미련 갖지 말고, 어서 전도하여라!

16. 옛 인연과 사연을 생각하고 죽은 자가 더 좋다 하나, 큰 바다에 상어, 고래, 인어가 떼를 지어 낮은 물에서 살고 있다. 육지로 나오고 싶어서 길을 찾으나, 물길이 없어서 못 나오고 있다. 어서 업고, 들고, 메고 데리고 나와라.
17. 육신이 죽어 장사 지내면 끝난다.
18. 신앙이 죽은 자도 장사 지내고 나면 못 살린다.
19. 육신이 죽어도 장사 지내기 전에 3일 반을 기다린다. 신앙이 죽은 자도 한 때 두 때 반 때 만에 살아나기도 하니, 그 생명의 사명자는 희망으로 기다리며 살려라.
20. 신앙이 죽은 자는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못 살려도 산 자가 살리기도 한다.
21. 자기 신앙이 죽어 가는지 늘 살피라. 병들다가 죽는다.
22. 신음하는 자들을 모두 찾아 죽기 전에 살려라. 죽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살릴 수 있다.
23. 월명동의 나무도, 돌도 죽기 전에 살려서 빛이 나게 했다.
24. 숲속에서 잡초에 묶여 가지가 죽고 잎이 죽은 채로 살 때는 실상 잠자는 나무요, 죽은 나무였다.
25. 돌과 바위가 흙과 수렁에 묻혀 있을 때는 죽은 돌과 바위였다. 땅에 묻혀서 죽음의 잠을 자던 돌들을 살리니, 살아 있는 돌이 되었다.
26. 죽어 있는 생명들이 모두 이와 같으니, 말해 주면서 살려라.
27. 자기 재능과 달란트를 놀리는 자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다.
28. 죽은 사자는 산 토끼만 못하다.

<2012년 10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잠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2. 사탄 마귀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사탄 마귀에 대해 잠을 자는 자다.
3.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도에 잠을 자는 자다.
4. 잠을 자는 자는 아무것도 못 한다.
5.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 한다. 고로 죽은 자와 같은 자를 보고 잠을 잔다고 말한다.
6. 평소에 기도하며 정상적으로 사는 자는 육이 잠을 자도 꿈에서 혼체가 살아 있는 생활을 한다.
7.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사랑의 죽음의 잠을 자는 자다. 잠자는 자는 할 일을 못 한다. 고로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을 가져간다.
8. 성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잊고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자다.

9. 생각해도 행하지 않는 자는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는 자와 같다. 이는 반은 깨어 있고, 반은 잠을 자는 자다.
10. 자기 옆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자는 그에 대해 잠을 자는 자다.
11. 자기 인생에 있어서 꼭 할 일을 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것에 대해 평생 잠만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12. 내 고향에 희귀종이 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80년 동안 거기 살면서도 모르셨고, 우리 형들은 50세가 될 때까지도 몰랐고, 나는 40세 때 사람들이 말해 줘서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밤잠도 안 자고 낮잠도 안 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았다.
13. 잠자는 자는 자기 것을 다 뺏기면서도 잔다.
14. 잠을 깬 자는 알고, 얻고, 사랑하고, 천국을 만들어 산다.
15. 내가 잠을 자니, 모기가 내 피를 빨아먹으며 포식을 했다. 내가 잠을 깨니, 즉시 모기를 잡았다.
16. 인생 잠자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1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영혼의 잠'도, '생각의 잠'도 자지 않으신다.
18. 인생 잠, 신앙의 잠을 자면서 묶인 무지의 끈은, 잠에서 깬을 때 자기가 모두 끊어 버린다.
19. 뛰어다니면서도 깊은 잠을 자는 인생들이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잠을 자는 자다.
20. 내가 잠을 깨야 보인다. 내가 잠을 깨야 나의 적이 도망간다. 그리고 적을 잡아 가두게 된다.
21. 육신이 잠을 자든지, 생각이 잠을 자면 기다렸던 휴거 역사가 왔다 갔어도 모르고, 주님이 왔다 갔어도 모르고, 하늘 잔치가 끝났어도 모른다.
22. 큰 자나 어린 자나 잠자지 않는 자만 하늘 잔치에 참석한다.
23. 주를 만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이 찌서 다니고 있는데도,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자들은 왜 저들이 살이 찌고 기뻐하며 다니는지 모른다.
24. 신랑을 만난 신부는 안색이 달라진다. 눈도 살아 있고, 귀도 살아 있고, 말도 살아 있고, 얼굴빛도 살아 있고, 생각도 살아 있고, 행동도 살아 있다.
25.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모든 것이 죽어 있다. 고로 이야기를 해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
26. 산 자와 죽은 자를 볼 줄 알아라.
27. 산 자는 눈이 떠져 있고 할 일을 한다.
28. 죽은 자는 돌아다니고 있어도 제 할 일을 못 한다.
29. 죽은 자는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30. 육체 있는 주는 세상에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깨어나 살아난 자다.

<2012년 10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31. 사탄은 우리를 잠자기 하려고 수면제를 가지고 다니며, 성적 사랑과 각종 세상 사랑과 향락의 수면제를 먹여 준다. '세상 생활'이라는 음식을 다 맛있게 하여 그것을 먹게 함으로 각종 생각의 잠을 자게 한다.
32. 잠에서 깨어 일어난 자는 먼저 사탄 마귀를 다 잡아서 멸하고, 주와 같이 행한다.
33. 죽음의 잠을 자지 않는 자는 전능하신 성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육이 누구인지 알고, 그와 일체 되고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하며 산다.
34. 산 자는 주와 교통한다. 산 자는 자기 사랑하는 자와 교통한다.
35. 산 자는 느끼고, 깨닫고, 보고, 듣고, 행하게 된다.
36. 인생 낮잠을 자는 자는 한심한 자다. 잠에서 깨 봐야 자기가 얼마나 할 일을 못 했는지 안다.
37.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에 잠을 자는 자다.
38. 돌 머리, 돌잠 잔다. (돌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
39. 솔 머리, 솔잠 잔다. (소나무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
40. 물 머리, 물잠 잔다. (호수, 물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
41. 만물은 보물이다. 만물에 잠을 자면, 옆의 사람이 안 깨워 준다. 다 가져간 후에 그제야 보라고 잠을 깨워 준다.
42. 부들부들한 소고기 안심에 잠을 자면 뼈다귀를 먹으면서 “저 분은 이가 없어서 늘 저 부들부들한 살만 씹으면서 우물우물 침 흘리며 먹네.” 한다.
43. 소고기에 잠을 자면 소고기를 먹어도 안심을 못 찾아서 못 먹고 맛없다며 팔아 버린다. 어느 때는 개에게 주기도 한다.
44. 잠자는 자는 소고기 안심을 팔아서 염소 고기를 사 온다. 깨어 있는 자는 염소를 팔아서 소고기 안심을 사 오고 양고기를 사 온다.
45. 잠자는 자는 양을 염소로 알고 판다. 잠에서 깬 자는 양인 줄 알고 좋아서 사다 기른다.
46. 잠을 자면 7년, 10년, 21년이 가도 모른다.
47. 잠을 깬 자만 안다.
48. 잠을 깬 자는 고생길을 가도 좋아한다.
49. 잠자는 자는 “왜 고생길을 가지?” 하고 웃는다.
50. 생명길은 고생돼도 생명길이며 사랑길이다.
51. 잠자는 자의 것은 없다. 다 먹고 씻고 떠났는데, 늦게 일어나서 기다리며 “왜 안 오지?” 한다.

52. 차를 타고 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구경했다. 그러나 피곤하여 잠자는 자는 낮을 한밤중으로 보냈다. 잠에서 깬 자만 눈에 빛이 나서 창밖을 보고 사진을 찍고 비디오를 찍으며 웃어 났다. 해가 지고 종착역에 내렸다. 잠자던 자가 깨서는 “왜 어둡지? 구름이 켜나?” 했다. 숙소에 들어가서 비디오 녹화한 것을 보여 주니 “왜 나 안 깨웠어?” 했다. “모두 깨우는 시간에 다 깨웠어도 네가 안 일어나고 화내고 욕했잖니. 네가 잠을 자다가 여행비에 포함된 뷔페도 못 먹고, 회사 사장이 선물로 주는 것도 못 받은 거야. 선물은 이곳 특산물이야. 이것을 받으려고 모두 이 회사로 여행 온다고 하는 거잖아. 실크 내의 한 벌과 실크 겹옷 한 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이나 해. 이 선물은 이 회사 사장이 관광객에게 직접 주는데, 잠자는 자는 안 준다고 했잖아. 관광객들이 오다가 잠을 자니, 10분의 3만 이 선물을 받는 데.” 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주시는 선물도 인생의 잠과 신앙의 잠을 자면 없다.

53. 잠에서 깬 사람은 선물을 받아서 무거워서 바닥에 놓고 보는데, 잠잔 사람은 손에 쥐고 다닐 것도 없다.

54. 잠언 말씀도 잠자면 없다.

55. 어떤 사람은 잠언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행하여 큰돈을 벌었다고 하며 감사해 했다.

56.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을 깨고 기도하니 ‘생각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내게 “오늘도 이것을 하 여라.” 하시며 말씀하셨다. 고로 그대로 했더니 소고기 안심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얻게 되었다.

<2012년 10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57. 교역자들이 잠언을 전할 때 아는 척하고 해석하지 말아라. 선생에게 면회 와서 해석 받거나 설명을 듣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는 자기를 나타내고 잘난 척하는 자다. 그 해석이 아닌데, 그리 해석하느냐. 계시의 글을 잘못 해석하여, 그 해석을 들은 자가 다른 생각을 하여 잘못 행하면 책임져야 된다. 자기 주관을 보태서 금에다 은을 섞지 말아라. 그대로 전하면, 성령이 필요한 대로 듣는 자들에게 각자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런데 왜 성자 주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제치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느냐.

58. 모르는 자는 아는 척하고, 아는 자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

59. 잠언의 계시는 각자에게 주는 계시다. 각자에게 가는 계시이니, 주도 해석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주는 데, 왜 전하는 자가 입버릇처럼 토를 달아서 주느냐.

60. 법을 선포한다. 설명을 듣지 않았으면서 더하는 자와 빼는 자는 그만큼 복을 뺏기게 된다.

61. 주도 아닌 자가 주인인 척 행하니 소경이다. 주도 감히 토를 못 단다.

62. 옛 시대를 보아라.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저 꼴이 되어 모두 흰 구름만 쳐다보며 주를 기다리게 하고 있지 않느냐. 아는 척하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63. 왜 단상에서 눈 뜨고 잠을 자느냐. 모르는 자는 잠자는 자다.

64. 전능자의 말에 토를 달지 말아라.

65. 전능자의 말에 토를 다는 자는 자기 얼굴에 흙을 다는 자다.

66. 필요 없이 잠언이나 말씀에 토를 달아서 생명들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의 깊은 것을 깨달아라.

67. 자기에게 해당되는 잠언을 깨달으려고 기도해야 된다. 고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잠언을 깨달으려 기도하도록 잠언

만 읽어 주어라. (설교하듯 자연스럽게 읽어 주라고 했지, 언제 토를 달아 해석해 주라고 했느냐.)

68. 잠언에는 ‘개를 조심하여라.’ 했다. 그 잠언을 듣는 자가 자기 집에는 닭이 있으니 개를 닭으로 생각하고 닭을 조심하게 된다. 기도하여 각자 깨닫고 행하게 해야 된다.

69. 때가 되면 강아지가 알아서 눈을 뜨는데, 왜 눈을 안 떴다고 하며 강아지의 눈을 찢느냐. 철부지다.

70. 행한 대로 깨닫고 받고 얻도록 가만히 두어라. 목회자가 목 조르지 말아라.

71. 미련한 자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자기 무지를 자랑삼아 웃으면서 청중을 임시로 웃기려고 한다. 몰라서 웃는 자도 있고, 알고 비웃는 자도 있다. 설교 때 성자께서 그의 육과 같이 말씀의 겹으로 양심을 찌르게 했는데도 또 한다.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면 이마를 부딪혀 깨닫게 된다.

72.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멍멍멍. 까악까악.

73. 개가 너를 보면서 “너도 개냐?” 해도 개구멍으로라도 기어서 빠져나가라. 나간 다음에 개에게 “개구멍을 내 줘서 고마워. 그 개구멍 덕분에 내가 나와서 말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 고마워.” 해라. (→ 이 잠언을 해석해 줄 것이냐? 각자 기도하여 깨달아라.)

74. ‘양반인데 체면상 창피하게 개구멍으로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거기서 못 나오면 개들과 같은 차원의 땅에서 살게 된다. 고로 개구멍으로라도 나와라. (→ 교역자들이 이 잠언의 뜻을 안다고 풀어 줄 것이냐? 아는 척하는 자는 내게 풀어서 보내 주어라.)

75. 모르는 자가 안다고 하면서 가다가 함정에 먼저 빠지고 절벽에 먼저 떨어진다.

76. 본 대로, 글대로 전해 주어라.

77. 생각의 잠을 자는 자는 만사에 잠을 자는 자다.

78. 모르면 잠자는 것이다.

79. 성자 주님과과의 사랑의 잠을 자니, 주님도 사랑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잠자게 놔두신다.

80. 주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도 해 주지 않으니 비유를 모른다.

81. 시대가 되어 말을 해야 되는데, 시대가 악하여 무슨 말만 하면 억울하게 하니 비유로 말해 준다.

82. <비유 - 천천히 읽어 주기> 주인이 기르던 짐승이 주인을 물고 괴롭히니, 이웃집의 본래 짐승 주인에게 주었다. 그러니 본래 주인이 고마워하며 “내 짐승이 왔구나.” 하며 한 깊은 골짜기에서 그 짐승을 길렀다. 본래 그 짐승의 주인은 “이제 내 너를 소홀히 대하지 않고, 내가 예비한 이 깊은 골짜기에서 영원히 안 내보낸다.” 하고 큰 소리를 쳤다. 그 짐승을 본래 주인에게 건네 준 주인이 그 모습을 쳐다보니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다. 세세토록 짐승이 되어 자기 본래 주인에게 당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본래 짐승의 주인이 소홀히 하다가 잃었는데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제는 철문과 철기둥과 창살을 만들어서 영원히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다. 짐승을 다시 찾은 본래 주인은 천하를 얻은 거같이 좋다고 하며 영원히 간직하겠다고 했다. 짐승은 괴물이니, 본래 짐승 주인은 이를 귀히 보고 멸종될까 하여 철저하게 살피 영원히 못 나오도록 했다.

83. <비유>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짐승들의 계곡이다. 누가 저곳에서 저 짐승들을 끌어낼 자 있으랴.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뿐이다.

84. <비유> 전에 임금이 살던 궁궐이 지금은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잡초만 무성하다. 임금이 다시 건축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그 엄청난 경비를 들이고 노비를 들여 건축하여 거기 살겠냐.
85. <비유> 전에는 불조심하지 않고 불을 내어 궁궐을 다 태워 놓고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 양옥집을 지어 놓고 살고 있다. 임금이 지나가며 오가는 길에 쉬어 가더라도 하니 다행이다.
86. <비유> 임금이 개미를 타고 밀림으로 가니, 백성들이 말을 타고 가는 신하들만 쳐다본다.
87. <비유>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으니, 적들이 신하가 임금인 줄 알고 추격한다. 악한 세상이라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살아간다. 주가 타는 말을 뺏어서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졌다. 이때 말이 말도 안 되게 밟고 배설물을 싸고 갔다.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이를 구경한다.
88. 행한 대로 가서 봐라. 갈 때까지도 데려가는 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 지옥 사자는 지옥에 가서 말하고, 천국 사자는 천국에 가서 말한다.
89. 한 시장에 들어갔더니 좌판에 여러 가지 먹거리를 놓고 팔고 있었다. 급히 먹을 수 있는 것이 새우튀김과 오징어튀김이었다. 그래서 나는 새우튀김과 오징어튀김을 뜨겁게 튀겨 달라고 했다. 같이 온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에 같이 못 왔으니 우선 몇 개만 튀겨 달라고 했다. 나는 하나만 먹으려고 했다. 이때 일본에서 직장인들이 잠깐 왔다가 들렀으나, 내게 인사만 하고 바로 갔다. 나만 오징어튀김을 먹고 있었다. (→ 아는 척하는 자들은 이 잠언 풀어 보아라.)
90. 나와 같이 잠시라도 먹고 즐길 자가 없었다. 차원이 맞아야 함께 먹고 즐긴다.
91. 튀김집 아줌마가 튀김을 너무 크게 해 줘서 하나만 먹어도 요기가 됐다. (→ 아는 척하는 자는 이 잠언을 풀어 봐라.)
92. 차원이 같아야 한자리에서 같이 먹고 즐긴다.
93. 튀김을 먹다가 기름이 옷에 떨어졌다. (→ 아는 척하며 잠언을 해석하는 자는 이 잠언을 풀어 봐라. 요즘 잠언이 어렵다고 교역자들이 해석을 해 주는데, 올바른 설명을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해석했다가는 모두 잘못 깨달아 잘못된 길로 간다. 옛 시대도 성경을 잘못 해석해 주니, 듣는 자들이 모두 흰 구름만 쳐다보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값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94. 내 제자는 건너편 오른쪽 튀김집의 튀김을 팔아 주며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튀김집 아줌마가 자기 튀김을 사라고 했다. 나는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너편 오른쪽 튀김집의 튀김을 팔아 주었다. (→ 왜 건너편 오른쪽 튀김집 튀김을 팔아 줬겠느냐. 아는 척하는 자는 말해 봐라.)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확실히 하려면 확인하여라.
2. 확인하지 않으면, 인간의 실수대로 손해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다.
3. 자기도 실수, 상대도 실수다.
4. 인간의 생각과 기억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지기 때문에 실수했어도 모른다.
5. 전능하신 성자 주님께 말해 놓으면, 주님은 잊지 않으시니 주님이 해 주신다.
6. 자기가 인식한 대로 주님은 계시해 주신다. 가령 <까치>를 ‘길조’로 인식하고 있으면 반갑고 기쁜 일을 암시하실 때

까치로 징조를 보여 주시고, <까마귀>를 ‘흉조’로 인식하고 있으면 안 좋은 일을 암시하실 때 까마귀로 징조를 보여 주신다.

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옆에 계셔도 직접 나타나 말하여 행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사역자로 삼고 행하신다.

8. 마음으로 깨달도록 혼적으로 말씀하시어 마음을 통해 육이 깨닫게 하신다.

9. 육적으로 사는 자는 단순하다.

10. 영적으로 살면 단순하지 않다. 영적으로 살면 혼체가 제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 혼체가 인간 생각의 차원 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11. 육으로 보면 인간은 하나의 로봇 인생이다. 로봇이 입력된 대로만 움직이듯이, 인간도 눈으로 보는 대로, 귀로 듣는 대로, 몸에 접하는 대로, 뇌에 입력되는 대로 행하며 살기 때문이다.

12. ‘혼체’는 인간의 생각 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다. 영으로 살아야 이 혼체가 제대로 활동한다. 고로 영으로 살면, 자기 혼체가 자기 영체와 함께 자기 육체를 움직여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로봇 인생이 아니다.

13. 육적으로 사는 자는 한쪽밖에 못 보고 산다.

14. 영적으로 사는 자라야 처음부터 나중까지 전체를 360도로 다 보고, 현실뿐 아니라 미래를 보고, 영원한 세계까지 다 보고 산다.

15. 인간의 뇌만 중심하여 육적인 것만 중심하고 사는 자는 로봇 인생이다.

16. 인간의 뇌는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고, 귀로 듣는 대로 행한다. 고로 배고프면 먹고, 느끼면 느끼는 대로 한다. 마치 로봇이 무엇을 입력하면 그대로 행하듯 한다. 고로 육적으로 사는 자는 로봇 같은 삶을 산다.

17.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 혼체가 주인이 되고 영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의 삶은 이러하다. 눈으로 봐도 본 대로 행하지 않고 영이 필요하면 행한다. 또한 귀로 들어도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영이 수집 가지를 보고 판단하여 필요한 것만 행한다. / 혼과 영은 육과는 전혀 다르다. 로봇은 입력한 대로 행하고, 사람은 판단하고 행한다. 이와 같이 육과 혼·영은 차이가 있다. / 로봇도 눈으로 보고 들으면 기계 자체가 판단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인간의 차원으로는 판단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육적으로 사는 자도 보고 들으면서 자체적인 판단은 하되, 신적 차원으로는 판단하지 못한다. 육과영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다.

18. 인간의 뇌는 참으로 단순하다. 고로 인간은 단순하게 살아간다. 이 말은 엄청난 영원한 것을 제쳐 놓고, 육적으로만 살아간다 함이다.

19. 인간의 눈도, 귀도, 생각도 단순하다. 눈에 띄면 행한다. 귀로 들으면 행한다. 마음이 종이 두께같이 얇아서 마음에 느끼면 그대로 행한다. 그러나 혼과 영은 자기 육이 보고 듣고 마음에 느껴도 70%는 그대로 안 한다. 혼과 영은 단순하게 사는 육과 다르다.

20.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너무 단순하게 산다. 모두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우리 육이 보고 듣고 느낀 대로 90% 이상 못 하게 하신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로봇과 같다.

21. 단순하다는 것은 지능이 낮은 것을 말하며, 지능이 높다 해도 역시 육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육적인 것은 단순하다. 혼과 영은 육 앞에 신과 같아서 혼과 영의 지능은 육의 지능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22. 인간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접하는 환경이 없으면 없는 대로 단순하게 행한다. / 그러나 혼과 영은 보고 들은 것

이 없고 환경이 없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혼과 영은 없으면 만든다.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께 달라고 한다. / 그리고 본 것과 들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는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시면, 안 한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행한다. 혼과 영은 신과 같이 행하여 단순하지 않다.

23. 단순한 일을 행하니, 이 세상에서 그리 바쁘게 사는 인생들이 필요 없이 더 바쁘고 쫓기며 사는 것이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단순하지 않아 필요한 것만 하시니, 간단하게 하신다.

25. 사람이 종일 본다고, 듣는다고, 배경이 그렇다고 그대로 단순하게 행하면,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더 시간에 쫓기게 된다. 그러나 자기 혼과 영이 전능하신 성자 주님과 함께 행하여 신같이 행하면, 쫓기지 않고 간단하게 행한다.

26. 뭘 모르는 사람은 필요 없이 많이 행한다. 입력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로봇 인생이다. 인간은 로봇처럼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환경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고 행하신다. 고로 자기 혼과 영이 성삼위와 일체 되어 판단하고, 자기 욕이 그 판단대로 행하면, 신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단순하게 살지 않는다.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실수도 착오도 없도록 자신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2. 마치 사람이 눈을 입으로 평생 사용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영원히 실수하지 않게 자신을 만들어 놓았기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절대 신으로서 자신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창조해 놓았으니, 마치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의 관계를 해도 절대 ‘위장’에는 임신이 안 되도록 창조해 놓은 것과 같다.

4. 인간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면 평생 실수하지 않고도 살게 된다. “어떻게 인간이 실수를 안 할 수 있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 평생 살인하지 않고도 살지 않느냐. 자기를 다스리니, 누가 밍다고 해서 살인하지 않는다. 또한 평생 나무를 타면서도 조심하니 평생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 사는 자들도 많다.

5.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만 실수하고,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만 단순하게 행하며 살 뿐이다.

6. 인간도 절대 완전하게 하는 것이 많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평생 자기가 자기를 온전하게 지켜 평생 불구자가 되지 않게 한다. 어떤 사람은 평생 차를 운전했는데도 사고 한 번 나지 않았다.

7. 평생 이성 관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도 있다.

8. 평생 도둑질 안 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이와 같이 이해하며 절대자 하나님은 전체가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9. 온전한 자는 완전한 자다. 인간도 신과 같이 인간으로서 온전할 수 있다. 다는 온전하지 못해도 부분적으로는 온전할 수 있다.

10. 하나님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 마치 자기 몸과 손발은 늘 보니까 안 잊어버리듯 하신다. 그러나 잊어버릴 것은 꼭 잊어버리신다. 하나님을 버린 자나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자는 꼭 잊어버리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단 한 번도 단순하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항상 온전하게 행하신다.

12.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도, 또 그가 세상에 보낸 자도 하나님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한다고 성경에 말했다. (사 11:1-5)
13. 인간은 단순해서 꼭 할 것도 안 해 버리고, 꼭 안 할 것도 해 버린다.
14. 인간이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해도 육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생각이 낮고 얕아서, 누가 말하면 단순하게 듣고 행한다. 고로 주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쉽게 할 수 있다.
15. 영적인 자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구원자에게 물어보고 행한다.
16. 단순한 자는 확인하지 않고 행한다.
17. 단순하지 않은 자는 확인하고도 다시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지 확인하여 기어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한다.
18. 동물이나 곤충들을 보면 단순하게 행한다. ‘영’이 없으니 육 혼자 행하기 때문이다.
19. 인간은 혼과 영이 있다. 고로 혼과 영에 상관없이 행하면 단순하게 행해진다.
20. 어떤 사람은 차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 단순하게 ‘그늘에서 쉬다 오자.’ 생각하고 10분 동안 쉬다가 왔다. 그 사이에 차가 왔다가 떠났다. ‘언제 또 기다려? 예라. 또 쉬다 오자.’ 하고 또 쉬었다 왔다. 그 사이에 또 차가 왔다가 갔다. 하루 종일 그같이 하다가 그날은 결국 차를 못 타고 갈 곳을 못 갔다. 인간이 이같이 단순하다는 것이다.
21. 인간은 그저 단순하게 살기에 될 것도 안 된다.
22. ‘단순’이란,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23. 단순해서 일도 저지르고, 사고도 내고, 싸움도 하고, 울고 짜고, 스스로 고통이다.
24. 인간은 단순하게 순간만, 현실만 생각하고 놀고 먹고 즐기고 취하며 산다. 그 삶이 자기 앞에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 자기를 빠뜨리고, 그 삶이 자기 앞에 절벽이 되어 자기를 떨어지게 한다.
25. 단순히 육만 위해 사는 자는 단순한 자다.
26. 육적인 삶 외에 다른 삶이 없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간다.
27. 하나님은 신이시고 지능이 뛰어나셔서 모든 자들을 다 기억할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다. 지능이 뛰어나셔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만 기억하신다.
28. 사람은 사랑 중에서도 ‘이성 사랑’에 아주 단순하다. (고로 금방 빠진다.)
29. 사람은 물질 중에도 ‘돈’에 아주 단순하다. (고로 금방 빠진다.)
30. 그러나 사람은 ‘희생’에는 아주 단순하지 않다.
31. 인간은 ‘미’에 단순하다.
32. 자기 마음과 정신이 성자 주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단순하지 않다.

<2012년 10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구세주 성자를 모르니, 인간이 단순하게 산다.
2. 단순하게 살면 가치 없이 살아가게 된다.
3. 쌀을 가지고 밥만 해 먹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4. 쌀을 가지고 각종 떡도 만들고, 각종 과자도 만들어 먹는 것이 단순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5.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6. 순간만 보고 현재만 보고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고, 전체를 다 보고 미래까지 보고 행하는 것이 단순하게 살지 않는 것이다.
7.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니, 인생을 가치 없이 단순하게 살게 된다.
8. 성자 주님은 전지전능하사 단순하게 살지 않으신다.
9. 동물도, 사람도 지능이 낮을수록 단순하게 산다.
10.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하며 같이 살아야 차원 높은 신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삶을 가치 있게 살게 된다.
11.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하루만 봐도 그저 욕만을 위해 단순하게 산다. 순간만 보고 욕만 위해 사니, 한 번 쓰고 끝나 버리는 소모품 인생과 같다.
12. 욕만을 위해서 한 가지만 보고 사는 자는 단순한 삶을 사는 자다.
13. 혼적 삶, 영적 삶을 살면 엄청난 삶을 살게 된다.
14. 어린아이들은 지능이 낮고 성장이 안 되어서 단순하게 산다.
15. 아이들은 잠만 자고 젖만 먹으면서 단순하게 산다. 전능하신 성자 주님이 보실 때, 인간도 시대를 따라 성자 주님을 안 믿고 살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다.
16. 자기 인생이 단순하게 사는가, 복잡하게만 필요 없는 것을 행하며 사는가 보라.
17. 현재만 생각하고 살고 욕만을 위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니, 안 그래도 바쁘데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행함으로 오히려 복잡하게 필요 없는 것을 행하며 시간에 쫓겨 살고 있다. 단순한 삶이다.
18. 엄청난 뜻을 두고 창조한 '사랑'도 인간끼리만 하면 단순하다. 고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한 번 쓰고 끝나 버리는 육적 사랑, 곧 소모품 사랑을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시는 성자 주님과 사랑하면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차원 높고, 가치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사랑을 하게 된다.
19. 주와 같이 하면 '조각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수백 가지로, 수천 가지로 다양하게 하게 된다.

20. '잠언을 쓰는 것'도 스스로 하면 단순한 잠언만 쓴다. 성자 주님과 같이 하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로 쓰게 된다.
21. '전도하는 것'도 단순하게 하면 푸짐하게 얻지 못한다. 성자 주님과 같이 해야 푸짐하게 얻는다.
22. '예술'도 단순하게만 하지 말고, 기도해 보아라. 그 센터에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다.
23. '기도'도 단순하게 하면 깊이 못 한다.
24. '주님과 대화'도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하면 늘 그 이야기다.
25. 모두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사명 속에서 '단순'이라는 주관권을 벗어나라!
26. 사랑 중에서도 '이성 사랑'이 가장 단순한 사랑이다.
27. 혼자 자기중심으로 살면 단순한 삶을 산다. 성자 주님과 그 분체와 일체 되어 살아 바라. 단순한 삶에서 벗어난다.
28. 육계는 단순하나, 영계에 가 보면 너무도 다양한 삶이다.
29. 시골은 거리도, 시장의 먹거리도, 삶도 단순하다. 발달된 도시는 거리도, 시장의 먹거리도, 삶도 다양하다. 인간이 성자 주님과 같이 살아야 이상적인 삶을 살면서, 인생을 다양하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산다.
30. 시대는 발달되었으나, 사람들은 단순한 문화 속에서 단순한 삶을 산다. 이는 육적 두뇌에만 시동이 걸려서 육적으로만 살기 때문이다.
31. <육적 삶>은 단순한 삶이다. <영적 삶>은 나뭇가지같이, 거기에 열리는 각종 열매같이 다양하여 그만큼 보람 있고 편안한 희망의 삶이다.
32. 사람이 '심령 기능'이 죽어 있으면 단순하게 살게 된다.
33. 성자 주님과 같이 살아야 잔칫집의 푸짐한 음식 같은 삶을 살고, 사랑과 희망의 삶을 산다.
3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구상하여 만든 월명동 성지 땅을 보아라. 단순하나? 아니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나?
35. 전능자가 구상한 것을 시대에 보낸 사명자가 성삼위와 함께 만들었기에 호수와, 샘과, 나무와, 돌 작품과, 형상석과, 각도석과, 산책길과, 운동장과, 뜻있는 곳들을 '자연'과 함께 다 갖춰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성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갖춰진 삶이다.

<2012년 11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36. '기성'은 늙어서 늘 하던 것만 하는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산다.
37. '새 역사'는 젊기에 다양한 이상(理想)의 삶을 살고, 과거에 기다렸던 희망을 이루는 각종의 삶을 산다.
38. 단순한 삶은 지쳐서 의욕을 잃는다.
39.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발전이 없으면, 늘 단순한 것만 보고 듣고 말하게 된다.
40. '말씀'도 설교로, 잠언으로, 시로, 노래로, 강의로, 관리로, 이야기로, 책으로 다양하게 나간다.

41. '전도'도 다양하게 수집 가지로 하여라. 단순하게 하면 그쪽 면에서만 생명들이 온다.
42. 전도 시장을 만들어라.
43. 계시도 단순하게 받지 말고 다양하게 묻고 받아라.
44. 어떤 것을 놓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면 더 이상적인 것을 못 찾고, 해 놔도 별 볼품이 없다.
45. 욕에 갇혀 있는 자들은 단순하게 산다. TV나 보고, 책이나 보고, 먹고 자는 삶이다.
46. 단순한 인생은 지겨운 인생이다.
47. 사람이 하루에 한 가지만 하고 산다면 지겨울 것이다. 열 가지 이상 다양하게 하고 산다면 10분의 1만 지겨울 것이다.
48. '기도'도 한 가지만 하면 짧게 한다. 열 가지, 스무 가지씩 다양하게 하면 기도가 지루하지 않고, 길게 하게 된다.
49. 자기 사명을 가지고, 자기 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라.
50. 사람은 반복하는 삶을 지겨워한다.
51. 운동도 단순하게 한두 가지만 하면 그 면만 건강하다.
52. 섭리역사를 가면서 단순하게 살던 자들은 희망을 못 이루니 기어 나갔다. 나가서 사망권에서 누워서 잠을 잔다.
53. 육적인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끝난다.
54.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지능으로 살아야 육적 삶만 살지 않음으로 단순하게 살지 않게 된다.
55. 영적 생각은 육적 생각보다 100배나 더 차원이 높다. 영적 생각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늘로부터 오기에 육적 생각과는 비교가 안 된다.
56. 원숭이같이 운동을 많이 해야 건강하다.
57. 날짐승이나 들짐승이나 물고기들을 보아라. 정말 운동을 많이 한다. 사람이 운동을 가장 적게 한다. 고로 동물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산다.
58. 저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정상적인 양의 운동을 꾸준히 꼭 해야 된다.
59. 운동을 하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약하게 한다.
60. 몸 운동도 해 주고, 그와 같이 정신 운동도 해 주어라.
61.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행하면, 숨겨진 보화가 있어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며 산다.
62. 악인들의 세계는 짐승같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세계다.
63. 악의 세계는 다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64. 선의 세계에만 다양한 삶이 있다.
65. 지옥은 단순한 것만 반복된다. 천국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삶과 같이 돌아간다.
66. 천국은 천국을 구경하다가 세월이 갈 정도로 다양하다. 기쁜 세계가 연속된다.
67. 단순한 사람들은 인생을 귀하게 살지 못하고, 늘 차원 낮은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68. 성자 주님과 그 분체와 일체 되어, 항상 배워야 된다.
69. 지난 옛 역사는 할 것을 다 해서 지금은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산다.
70. 새 역사는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이상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
71. 사람들은 단순한 생각만 하고 행한다.
72. '단순한 생각'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저 당장 생각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는 것이다.
73. '말'도 단순하게 하고, 단순하게 듣고 행하니 후에 문제가 생긴다.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여건을 만들어 놔야 천한 것도 귀하게 쓰게 된다.
2.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놔야 귀한 것을 10배, 100배 더 귀하게 쓰게 된다.
3. 월명동에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 산에 있는 보통으로 보던 나무도, 논바닥에 박혀 있어 논밭을 오갈 때 밭에 걸린다고 천대받던 바위들도 모두 보물과 보석으로 귀히 쓰여진다.
4. 섭리역사에 조건과 여건과 배경과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 세상에서 천대받고 밟히던 자들과, 각종으로 허무하게 고통 속에 인생을 살던 자들을 모두 데려와서 인간 보물로 귀하게 쓰는 것이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절대적인 신으로서 천국에 영원한 여건을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 인생들의 영을 데려다가 귀하게 쓰며 살도록 하셨다.
6. 천국은 여건을 귀하게 만들어 놔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히 귀하게 살게 된다.
7. 환경, 배경, 여건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귀하게 쓰이거나, 혹은 천하게 쓰이게 된다.
8. 환경, 배경, 여건이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이면, 아무리 귀한 나무나 돌도 이름도 없이 가치도 없이 끝난다.
9. 임금이 사는 궁은 여건과 조건을 귀하게 만들어 놓으니, 누구나 궁에 살면 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
10. '공원'이라는 여건을 만들어 놓으니, 돌들이나 나무들이 어떤 여건에서 왔든지 공원에 들어온 것은 모두 귀히 쓰여진다. '사람'도 귀한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전에 어떤 여건에서 살았든지 누구나 귀히 쓰여진다.
11. 비경이 좋은 곳에 별장들을 지어 놓고 거기에 살게 하면, 그 전에 어떤 천한 환경에서 살았든지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보고, 모두 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 /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그 보낸 사명자의 품에서 살면 그

려하다. * 월명동 주변의 별 보잘것없던 돌 하나를 사진으로 보는데 알고 보니 작품이었다. 이제 월명동으로 어떻게 옮길지 생각 중이었다. 이때 주님은 옆에 계시며 말씀하셨다. “여건을 만들어 놓았기에 천한 것도 귀하게 쓰여지고, 귀한 것은 더 귀하게 쓰여진다.” / 주님이 이 한마디를 해 주시어, 사람들이 깨닫도록 계속 주님께 잠언을 받아쓰고 있다.

12. 동그래산 정상에 있는 다복술을 키워서 사연 있게 소나무 걸작품을 만들어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동그래산에 팔각정을 세우게 되었고, 팔각정이 귀히 쓰이게 되었다.

13. 하늘이 보낸 자의 사연은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사연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 보낸 자와 함께 행하셨기 때문이다.

14. 돌과 나무 사연이 먼저가 아니라, 사명자의 사연이 먼저다. 그 사연 먼저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물과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어라.

15. 사명자의 사연이 먼저가 아니라, 그를 보내신 정부, 성자, 성령님의 사연이 먼저다. 그 사연을 먼저 말하며 증거하고, 사명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16. ‘사연’이 없으면 시체다.

17. ‘사연’은 그것의 생명이다.

18. ‘사연’은 그것의 주체요, 짝이다.

19. 사연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가지 않으신다.

20. ‘사연 값’이다.

21. ‘사연’이 설교거리다.

22. ‘사연’이 역사거리다.

23. ‘사연’이 역사가 된다.

24. 너희도 주와 사연을 만들어라.

25. 주와 사연을 가진 만큼 주를 사랑한다.

26. 주와 사연을 가진 만큼 주를 가까이한다.

27. 똑같은 돌이나 바위가 논밭에 있다 하자. 사연이 있는 바위를 먼저 갖다 놓는다.

28. 보다 별로인 돌이나 바위라도 사연이 있는 것을 갖다 놓고 본다. 사람도 그러하다.

29. ‘사연’은 사랑을 말한다. ‘사연’은 자기와의 관계성을 말한다. 만물도 좋아하면 사랑한 것이다. 성적으로만 사랑해야 사랑이 아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면, 사랑한 것이다.

30. 월명동의 돌, 나무, 땅, 물, 모든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만 선생같이 그로 인해 기쁨이 솟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함께 깊은 사연을 나누고 기뻐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며 산다.

31. 월명동의 돌, 나무, 땅, 물, 환경을 보통으로 보는 자들은 소경이다. 그 차원과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
32. 월명동의 돌, 나무, 땅, 물, 환경을 귀히 안 보는 자들은 그것들을 월명동에 갖다 놓고 자연성전을 만든 선생도, 성자 주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귀히 못 본다.
33. 어느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이 귀히 보는 것을 귀히 못 보는 자는 그 주인도 귀히 못 본다.
34. 작가가 만든 작품을 귀히 못 보는 자는 그 작가도 귀히 못 본다.
35.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못 보는 자는 그 주인도 귀히 못 본다.
36. 자기도 푼돈을 모아서 월명동의 돌과 나무를 사 오게 하고 집을 짓게 한 자들이, 돈을 벌 때 귀히 번 돈을 거기에 썼으니 월명동에 있는 것들을 귀히 보게 된다.
37. 월명동을 놓고 늘 정성 들여 간구하는 자들은 자기 시간이 돈인데 자기의 귀한 시간을 거기에 썼으니, 월명동에 가면 모든 것을 귀히 보고 좋아한다. 고로 그 주인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도 귀히 본다.

<2012년 11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38. 선생은 월명동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태풍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각종 해충들과 뱀들과 야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기도한다. 또한 월명동에 오는 자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과 사랑하다가 가라고 기도한다. 또한 약수를 먹어 아픈 자들이 병도 낫기를 기도하고, 오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한다.
39. 정성 없이 다니지 말아라. 산 돼지가 지나가다가 소리 지른다.
40. 자기가 가는 곳,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다니는 곳을 놓고 늘 기도하며 살아라.
41. 월명동에 어느 누구도 해를 주지 않게 모두 기도하여라. 월명동에서 사고 나지 않게, 월명동에 오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하여라.
42. 선생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세상이 험하니 월명동 땅문서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 1000년 동안 하늘나라에 보관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 3일 만에 알았다고 대답하셨다. 월명동에 문제가 생긴 곳은 성삼위께서 그 후에 다 찾아다 놓으셨다. / 선생이 죽은 후에 후손들이 월명동을 귀히 여기지 못하여 월명동을 뺏기게 생겼다고 극적인 기도를 했다. 선생이 한국에 없을 때도 사탄이 사람을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을 뺏어 가려고 했는지 모를 것이다. / 선생이 해외에 있을 때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월명동을 때려 부수겠다, 자기네 것으로 만들겠다고 너무 성화여서, 선생은 불안하여 밤잠을 못 자고 여러 날 동안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치는 목소리로 “그놈이 누구냐?” 하시기에 이름을 대니, “감히 나의 것을 가져가겠느냐? 못 가져가! 걱정 마라.” 하셨다. 그리고 그 순간 주님께서 소 한 마리를 보여 주셨는데, 시멘트로 세운 전봇대에 굵은 밧줄로 소를 매 놓은 것을 보여 주셨다. 그 소는 월명동을 뺏어 가려던 그 사람의 얼굴이었다. / 이 모습을 보여 주시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소가 뛰다고 밧줄이 끊어지겠느냐. 전봇대가 뽑히겠느냐. 혹여 밧줄이 끊어지면 내가 그냥 두겠느냐. 전봇대가 뽑히면 내가 그냥 두겠느냐. 소가 뛰다가 밧줄 끊어지고 전봇대 뽑힌다며 걱정하는구나. 걱정 마라.” 하셨다. / 이때 그 소가 막 뛰기에 다시 하나님과 주님께 말했다. “저 소가 막 뛰네요.” 하니, 주님은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뛰는 만큼 제 모가지만 더 아파. 걱정 마라.” 하셨다. 다시 주님께 말했다. “주님, 여기가 홍콩인데요.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제 간이 콩만 해졌습니다. 심장이 다 타서 콩만큼만 남을 정도였습니다.” 했다. 주님은 말씀하시길 “그놈들 욕심이 족제비 같아서 마치 개구리 잡아먹듯이 코끼리를 잡아먹으려고 그 하는 짓을 큰소리치며 한다. 끝을 봐라. 그들의 끝을...” 하셨다.
43. 선생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놓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육의 성전인 섭리사의 생명들을 위해 늘 기도한다. 너희도

모두 기도하여라.

44. 선생이 유럽에 있을 때, 한번은 주님께서 섭리사의 모든 상황을 꿈으로 보여 주셨다. / 선생이 외갓집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큰 개가 나를 보고 으르렁거리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개는 앉아서 으르렁거리기만 하지, 쫓아오지는 못했다. / 담대하게 가까이 가 보니, 개는 쇠고랑이 채워진 상태였고 그 줄을 짧게 묶어 놓은 상태였다. / 내가 개 앞을 지나가려니, 개는 나를 쫓아왔다. 그러나 나를 물려면 줄이 1m 돼야 했다. 그래서 나는 담장 벽에 붙어서 지나갔다. / 그 개는 입을 벌리고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날카롭게 짖어 댔다. 나는 개에게 말했다. “야! 너 쇠고랑에 매여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이 구둣발로 너 한 번 차면 이빨 다 부러져. 주인도 없는 들개야!” 했다. 그랬더니 그 개는 꼬리를 내리고 땅에 엎드렸다. / 그때 한국 섭리사의 실정을 보여 주신 것이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행하면 악평자들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고 모두 이길 수 있는데, 모르는 자들은 숨어 살면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는 자들은 담대히 하고 있었다.

45. 기도하면 혼계에서 내 혼체가 그 실상을 보니, 알고 행하게 된다.

46. 온종일 기도해도 선생 혼자서는 시간이 부족하니, 수만 명이 놀지 말고 모두 기도하여라. 섭리사와, 자기 가정과, 민족과, 세계와,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하여라. 선생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비밀이라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모두 저마다 자기 위치에서 해당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여라.

47. 기도를 깊이 하면, 감동이 되어 기도할 것이 입에서 나온다.(* 이제 글씨가 엉망이다. 손에 힘이 빠져서 그만 써야겠다. 인간은 ‘힘’으로 존재한다. 손의 감각을 잃었다. 오늘 주님께서 온종일 나와 함께 계셨다. 하루 종일 있다가 말씀을 주셨다. 저녁 7시 30분이다. 이제 저녁기도 해야지. 글씨가 정말 안 써진다. 누가 이것을 아냐. 컴퓨터로 치면, 손이 아파도 어느 정도 칠 수 있지만, 펜으로 글을 쓰니 손이 아프면 감각을 잃어서 더 이상 안 써진다. 어느 때는 ‘말씀은 쓸 때 써야 한다.’ 하며 손가락을 멎들게 깨물 때도 있었다. 주님은 “찬물에 손을 담가라. 너 하는 것이 원시인 같다. 왜 손을 깨무냐?” 하셨다. / ‘오른손이 저리니까 손을 바꿔서 왼손으로 써 볼까?’ - 이때 쓴 잠언이 다음 잠언이다.)

48. 일을 많이 시켜서 쓰러져 서툴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낫겠느냐. 하던 사람이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이 100배 낫다. (* 5분 쉬자. - 5분 쉬었다. 쉬었으니 오른손으로 다시 써 보자.)

49. 속담에 앓느니 죽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죽느니 앓는 것이 낫다.

50. 힘들어도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처음 해 봐서 못 하는 사람을 시키는 것보다 낫다.

51. 힘들 때는 잠깐 쉬다가 다시 하는 것이 지혜다. * 팔과 손이 너무 아파서 글씨가 엉망이었는데, 5분 쉬고 다시 잠언을 쓰니 글씨를 보아라. 이제 알아볼 수 있게 잘 써진다.

52. 한번은 주님이 기가 막혀 웃으시는 소리가 들리기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나서 쫓아가 왜 그리 웃으셨냐고 물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게 말해 주마.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합당하여 무슨 말을 했더니, 그가 자존심 상해하며 내게 어떤 말을 하기에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웃었다. 남이 못 듣게 속으로 웃었는데 내가 들었구나.” 하셨다. /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했다. “바다에서 문어가 자기가 갈 길이라서 쪽쪽 헤엄쳐서 가니, 꼴뚜기가 이를 보고 ‘에이, 자존심 상해.’ 하는 격이네요.” 했다. 주님은 또 기가 차서 웃으셨다. 왜 웃으셨냐고 물으니, 주님은 “네가 내 심정에 기가 차게 맞는 말을 해서 웃은 것이다.” 하셨다.

53.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다. 세상 것이 들을 만하고 볼 만하다.” 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가 차지도 않아 하시고, 웃지도 않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양심 심판 하시사, 천 리 길 흠탕물에서 수영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보시고 그 마음에 감동시켜 회심하게 하시어 물이 빠져 살게 하신다.

54. 쇠로 동상을 만들고, 나무로 목상을 만들고, 각종 자료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칠까지 해 놓고, 전능자를 외면하고 제쳐 놓고 그 신상들이 마치 상천하지의 유일신이나 되는 듯 좋아하며 섬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보시고

여러 자기로 양심 심판 하시며,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 그 욕도 혼도 영도 시도 때도 없이 밤낮으로 심판하신다.

55. 자기보다 나은 자를 섬겨야지 자기보다도 못한 나무, 쇠, 돌 신상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인간 위해 창조한 것들이 쳐다보며 눈짓한다. 전능자는 보기에 민망해하시며 “이 꼴 저 꼴 못 보겠다.” 하신다. / 하나님은 애굽의 신상, 바벨론의 신상, 블레셋의 신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두 뒤엎고 불 지르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 신상들을 섬기던 욕신들을 다 멸하시고, 그 영들도 멸하셨다. 그 영들은 심판을 받아 사망권 뜨거운 세계에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내가 섬기고 사랑하던 신상이여! 어디로 갔습니까?” 한다. 그러니 사탄이 말하기를 “네 옆에서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했다. 이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외에 다른 신상을 만들어 섬기면 영원히 심판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했다. 이에 “저는 못 들었고, 못 봤는데요.” 하니, 사탄이 “너는 세상에서 눈 없이, 귀 없이 살았느냐?” 하며 긴 창으로 두 눈과 두 귀를 찌신다.

56. 자기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상을 신격화하며 섬기던 애굽과 바벨론과, 기타 신상을 섬기던 민족들은 그 왕들과 함께 멸망을 받았다. 그리고 그 자손들의 욕신은 수천 대를 사는 동안 항상 종이 되어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57.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께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신다. 개인·가정·민족·세계적으로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 태풍·홍수·가뭄·화산·지진·기근·각종 전염병·전쟁·인생의 허무와 허탈과 곤고함과 헛수고 등으로 호랑이가 두 앞다리로 사자의 뺨을 마구 치듯이, 이리저리 치신다.

<2012년 11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수고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2. 죄는 지으면, 평생 꺼린다.

3. 죄는 지으면, 자기 자신에게 짐이 되어 자기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그 죄가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탄도 괴롭히며 고통을 주고, 전능자 하나님도 회개할 때까지 죄의 고통을 받게 하신다.

4. 죄에 대한 회개의 상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형제끼리의 문제는 형제끼리 풀고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 회개하면 된다.

5. 형제에게 잘못해 놓고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

6. 어떤 사람은 형제에게 잘못해 놓고, 그 형제는 그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형제 것을 해하고 그 형제는 고통 중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끝났다고 본다. 마태복음 5장 23~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힌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다.

7. 어떤 것은 형제들끼리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해결해 주기도 하신다. 죄에 대한 것은 수만 가지라서 다 기록할 수 없다.

8.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아무도 몰라도 자기는 알기에 마음에 꺼리고, 그것이 자기를 괴롭힌다. 또한 사탄이 그 죄를 통해 그 마음을 실망시키고, 하는 일을 막고, 고통을 준다.

9. 죄를 회개했어도 자기 자신은 회개가 되었는지 잘 모른다.

10.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 기간이 있다. 어떤 것은 회개해도 죄로 인해 형벌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회개하면 형벌을 안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죄짓는 기간에 동시에 형벌을 받기도 한다.

11.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 사명자를 통해 대답하신다.
12. 하나님과 주님께 죄를 고하고, 사명자에게도 고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도 죄를 고하여 회개하기도 해야 된다.
13. 시작을 제시간에 하여라.
14. 시작한 데서부터 자기 시간이 된다.
15. 시작을 늦게 하면 목적지에 다 갈 때까지 시간에 쫓긴다.
16. 성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로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총괄하신다.
17. 그 일의 주인은 꼭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해야 된다.
18. 시작을 늦게 하면 끝 시간을 뺏긴다.
19. 시작을 늦게 하면 시작 시간을 뺏기게 되고, 끝 시간이 없어서 결국 그 일을 못 하게 된다.
20. 제때, 제시간, 제 할 일이다.
21. 성자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째, 제시간에 시작하고 둘째, 끝까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기 때문이다.
22. 끝에 가서 그 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끝에 가서 모든 것이 밝혀진다. (하나님도 끝에 가서 상을 베푸신다. 고로 수고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다.)
23. 첫째, 제시간에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고 둘째, 끝까지 가지 않고 가다가 마는 자들은 나뭇가지 인생들이다. 고로 결국 잘림을 받게 된다.
24. 과일나무도 묘목의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야 열매를 여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얻게 된다.
25. 하루의 일도 시작부터 끝까지 해야 주님을 만나게 된다.
26. 열차가 역에서 떠나면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중간에 서지 않는다. 고로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올라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탄다. 두 번째로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도중하차하면 다음 역에 못 간다.
27. 온전하여라. 시작부터 끝까지다.
28. 시작을 빨리하는 자가 승리한다.
29. 뛰는 거리가 짧을수록 시작을 빨리해야 된다.
30. 시작 기술이 없어 시작이 느린 자는 늘 우승에서 먼 자다.
31. 새벽을 깨우는 시작 기술이 참으로 중하다.
32. 저마다 자기 시간이 있다. 일찍 일어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저마다 자기 시간에서 시작을 빨리해야 된다. 일찍 일어났어도 졸면 소용없다.

<2012년 11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33. 어떤 일을 놓고 자기가 그 일에 동참하면, 성자 주님은 그 일을 확확 해 주신다.
34. 자기가 상징적으로 꼭 그 일에 동참해야 주님과 그 일을 같이 한 것이 된다.
35. 가령 자기가 어떤 일을 승낙하고 거기에 동참하면, 사랑하는 자가 마음과 몸을 다해 해 준다. 성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도 자기 혼자 행하면, 그 일이 주님과 같이 해야 될 일이라도 주님은 같이 해 주지 않으신다.
36. 신부로서 자기 책임과 조건을 꼭 세워야 되기에 작게라도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고 허락한 것이 되어, 주님이 그에게 계획하신 일을 행해 주신다.
3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땅에서 표상자가 지상을 대표해서 기도하게 하든지, 반드시 조건을 세우게 한 다 음에 세상에 계획하신 일을 하신다.
38. 자기를 향한 하나님과 주님의 계획이 있어도 자기가 허락하고 원하여 반드시 그에 해당되는 조건을 작게라도 세워 줘야 하나님과 성자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늘 기도하고, 원하는 일을 간구하고, 행하여라.
39. 하나님과 주님은 그 일의 당사자가 원하면 행하신다.
40. 그 일의 집행 권한은 일할 자에게 준다. 그것을 본인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이다.
41. 안 해 줄 것도 자기가 구하고 조건을 세우면 해 주신다.
42. 자기가 구하고 조건을 세우는 것이 자기가 승낙하는 것이다.
43. 몰라서 못 하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기도 한다.
44. 주와 사랑하며 일체 되어야 얻을 것을 제때 얻는다.

<2012년 11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죄 중에는 자기에겐 해를 주는 죄가 있고, 상대에게 해를 주는 죄가 있다.
2. 자기에겐 해를 주는 죄는 마음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법을 범한 죄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게으른 죄, 자체적인 이성의 죄 등이 있다.
3. 상대에게 해를 주는 죄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헐뜯거나, 악평하거나, 거짓으로 속여 사기를 치거나, 금전을 떼먹거나, 살인하거나, 각종으로 해를 준 것이다. 이러한 죄는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상대에게도 해가 되는 양면의 죄가 된다.
4. 자기 스스로 지은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조건을 세우면 되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준 죄는 자기도 조건을 세워 흑암 주관을 벗어나야 되고, 또 해를 준 상대에게 회개하고 해를 준 모든 것을 갚아 주기까지 해야 된다.
5.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죄는 자기 자체 회개를 하면 되지만, 상대에게 해를 준 죄는 성행위를 한 것만큼 그 죄의 무게가 크다.
6.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음란한 생각을 안 하고, 자위행위를 안 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등은 자

기를 성결케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욕도 혼도 영도 성결하게 되지 않는다. 욕, 혼, 영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7. ‘술 안 먹기, 담배 안 피우기, 음란한 생각 안 하기, 자위행위 안 하기.’ 등은 자기 욕, 혼, 영의 청결과 성결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고치고 행하지 말아라.

8. ‘이성의 생각’은 자기가 어떤 상대를 생각하고 누구를 좋아해서 오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때가 많다.

9. ‘자위행위’도 어떤 상대를 생각해서 일어나기보다 자기 생각, 자기 습관, 마음의 생리적 현상에서 일어난다. 0대 때는 생리적 현상이 없으니 이러한 생각이 안 일어난다.

10. 이성의 생각과 행위는 생리적 현상같이 하나의 마음과 생각의 현상이다. 모두 육체의 생리적 현상에서 오는 것이나 정신적 뇌의 현상에서 오는 것들을 다 통제하여 자기를 성결하게 하여라.

11.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인간의 체질적 현상에서 오는 것이 많다.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은 1년이 가도 안 먹고, 10년이 가도 안 먹는다. 그러나 체질적으로 당기면 매일 먹게 된다.

12. 자기 마음·정신·생각에서 생기는 뇌의 현상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온다. 이는 마치 잡초의 뿌리를 뽑지 않고 위만 뜯어서 뿌리에서 또 잡초가 나듯이, 자기 근성을 뿌리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13. 자기는 마음에서 전혀 원하지 않는데, 정신적 현상에서 죄의 생각이 오기도 한다. 정신의 뿌리에 있기에 그런 생각이 오는 것이다. 고로 ‘뿌리 뽑기 기도’를 해야 된다.

14. 로마서 7장 21~25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이같이 말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다. 그러나 참고 기도하여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했다.

15. 자기 마음에서는 술도, 담배도, 자위행위도, 성행위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자기 욕이 행해진다고 하며 괴로워한다. 근성을 뿌리 뽑지 못하여 정신적 현상으로 일어나니, 기도로 근성을 뽑아라.

16. 자기를 위해서 뇌의 생각에서 싹트는 것이 있으면 근성을 뽑아내야 된다. 자기는 원치 않으나 자꾸 온전치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근성이 있기 때문이다. 술도 담배도 오랫동안 안 하다가 또 하게 되는 것은 마음속에 근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성의 생각과 행위도 뇌에 근성이 있기에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다. 모두 뇌의 생리적 현상에서 오는 것들이다. 고로 근성을 뽑아야 된다.

17.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저마다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 조건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다.

<2012년 11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8. 자기 생각은 아주 강하기도 하고, 아주 약하기도 하다.

19. 자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죄의 생각과 행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고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 생각이 약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의 생각과 행위를 끊으면 힘없이 끊어져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것이다.

20. 죄를 지었으면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

21.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힘들다. 고로 작으나 크나 죄를 안 지으면 죄와 싸울 것도 없다. 회개와도 상관이 없다. 돈을 벌어서 돈을 헛된 곳에 쓰지 않듯이, 의를 행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필요 없는 것이다.
22.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야 된다. 또한 죄를 지었으면 과감히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포기하면 죄가 자기를 다스린다.
23.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듯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썩은 냄새를 풍긴다. 죄를 짓고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먹물 번지듯 번져 간다.
24. '회개'는 죄를 씻는다는 것이다.
25.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는 해결하기가 힘들다.
26.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준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여라. 이는 해결하기가 보다 쉽다.
27. 성자께서 그 욕이 되는 자와 함께 너희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주었으니 회개하여라.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욕과 함께 자기 영이 사망에 처하게 되어 죽는 길을 가게 된다. /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사명자에게 말하지 않아서 회개했어도 회개했는지 확인받지 못하여 회개가 안 된 것같이 생각하고, 스스로 꺼림을 갖고 스스로 고통받는다.
28. 자기 스스로 자주 죄를 지으니, 자기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하며 포기하게 된다. 그러지 말아라. 자신감을 가지고 '회개'로 죄를 다스려라!
29. 너희 죄를 없애려 대신 죽어 준 자가 있으니, 그 죽음의 조건이 너희 죄를 씻는 물이 되었다. 고로 너희는 씻기만 하면 된다. '씻는다'는 것은 자기 죄를 대신한 주와 사명자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30. 죄를 회개하면 다시 산 것이다. 회개하면 죄와 싸울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힘이 있다.
31.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욕도 영도 죄의 세계로 가서 살게 되니 삶 속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
32.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하여 죄의 세계로 가지 말아야 된다.
33. 용서는 죄보다 더 강하다.
34. 죄를 지을 때 1단계에서 잘라야지, 계속 행하여 2단계로 가면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35. 어떤 아이가 줄이 끊어질 듯한 그네를 한 번 타고 내려왔다. 그런데 또 타다가 줄이 끊어져 떨어졌다. 한 번 타고 내려왔으면 다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죄를 첫 번째로 지었을 때 돌이켜야지, 거듭해서 또 하다가 결국 의의 줄이 끊어져 떨어지게 된다.
36. 절벽에서 양손으로 잡고 있는데, 왼손을 죄의 손으로 썼다 하자. 거기서 끝내지 않고 오른손까지 죄의 손으로 썼다 하자. 결국 절벽을 잡을 손이 없어서 떨어지고 만다. 이와 같이 의의 손이라도 거듭해서 죄를 지으면 결국 잡을 손이 없어서 떨어지고 만다. 이같이 생각하고 양손을 의로 꼭 잡아야 된다.
37. '양손'은 마음의 의의 손, 행실의 의의 손이다.
38. 마음과 생각의 손과 욕의 행실의 손을 꼭 잡아야, 주님이라는 의에서 안 떨어진다.

39. 한손으로만 주를 잡고 있다가는 결국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 마음의 손도, 행실의 손도 주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

40. 욕의 행실만 안 하려 하면 약해서 죄를 짓게 된다. 마음의 손도 꼭 잡아야 양손으로 잡은 자가 되어 죄가 당겨도 자기 몸무게에 의해 끌려 떨어지지 않는다.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산에 늦게 가면, 다른 사람이 포도와 밤을 따 가고 주워 간다. 이와 같이 신앙 세계에서 늦게 하면, 자기가 얻을 것도 타인과 세상 사람들과 행악자들과 사탄이 가져간다.

2. 말씀도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일찍 일어나 못 받으면, 결국 받지 못하고 만다.

3. 빨리하지 않고 늦게 하여 타인과 같이 하게 되면, 타인과 겨루고 다투고 경쟁하면서 얻어야 된다.

4. 주님과 1대1로 행하는 시간에 행해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자기만 마음껏 얻게 된다.

5. 자기 시간은 대중의 시간보다 먼저 내서 써야 된다. 그래야 자기가 먼저 주님과 함께 쓰게 된다.

6. 시간의 1등은 금이고, 2등은 은이고, 3등은 동이다.

7. 하루를 봐도 새벽 시간은 조용하여 금 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복잡한 시간으로 가게 된다. 인생도 새벽같이 어린 나이 때는 시간이 많지만, 점점 성장해 가면서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된다. 10대 때 시간은 새벽 시간과 같아서 이때 하늘 시간으로 써야 된다.

8.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얻고 성장한다.

9. 새벽은 경쟁자도, 다룰 자도 없어 혼자서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면서 시간을 쪼개서 써야 하니 거의 자기 시간을 얻기가 힘들다.

10. 산속에 임자 없는 알밤은 먼저 주워 가는 사람이 임자다. 새벽에 일찍 주워야 다람쥐들이나 사람들이 주워 가기 전에 혼자서 다 주워 오게 된다. 새벽 시간에 얻는 것도 그러하다.

11. 부지런함, 열심, 노력이다.

12. 홀로 주님과 행할 때가 자기만 얻는 시간이다.

13. 먼저 마음·정신·생각으로 얻는다. 그다음에 그것을 행하면서 얻게 된다.

14. 낮은 곳에는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곳에는 좋고 높은 것들이 있다.

15. 욕신을 통해서 영의 것을 얻게 된다.

16. 욕신이 영의 것을 목적하고 행하면 영의 것을 얻게 되고, 욕의 것을 목적하고 행하게 되면 욕의 것을 얻게 된다.

17.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얻으려 해도 마음대로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욕신이 욕의 세계에서 그만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8. 욕이 마음과 함께 행한 것은 꿈에서 자기 혼체도 행하게 되고, 영체도 행하게 된다.

19. 누구든지 자기 육신이 신령한 기도를 깊이 해야 그 영도 영계에서 신령하게 활동한다.
20. 과일나무에 퇴비를 많이 주고 관리를 잘해 줘야 나무가 잘 크고 과일이 잘 열리듯이, 자기 육신이 자기 영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좋은 영이 되어 빛난다.
21. 돈을 많이 줄수록 좋고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육이 많이 수고하고 많이 의를 행해야 그 영도 크게 성장하고 빛나게 된다.
22. 한 차원 높이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라. 초가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같이 힘들고, 소롯길을 넓혀서 차가 다니게 하는 것만큼 힘들다.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쉽게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23. 잠깐 조금 했다고 해서 차원이 높아지지 않는다. 꾸준히 끝까지 정한 것을 해야 된다.
24. 지난날같이 해서는 차원이 안 높아진다.
25. 지난날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으로 해야, 지난날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살게 되고 더 좋고 높은 것을 얻게 된다.
26.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의 차원만 높이고, 행실의 차원은 못 높인다.
27. 사람은 행실을 해야 얻기 때문에 똑같이 원해도 똑같이 얻지 못한다. 고로 빈부귀천이 나뉘지고 상 - 중 - 하로 나뉘져 살고 있는 것이다.
28. 자기 급에서 하급 인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행하며 살아라.
29. 천국에 가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육'으로 행하면서 간다. 고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모두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30. 힘쓰고, 노력하고,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도 얻게 된다.
31. 스무 살의 자녀를 얻으려면, 2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사랑하며 관리해야 된다. 이같이 차원을 높이고 좋은 것을 얻는 것도 마음먹고, 또 행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32. 어떤 목적인 것을 얻으려 할 때 1년, 혹은 몇 년만 하면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10~20년은 해야 강산이 변한 것을 얻게 된다.
33. 인생 100년 노력하고 수고하여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 천국을 얻으면, 최고의 대성공을 한 자로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최고로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하신다.
34. 어떤 사람은 땅에 뿌려 세상으로부터 얻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뿌려 하늘로부터 얻는다.
35.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36. 만일 사후에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이 없다면, 영혼 구원을 못 받고 살아도 세상에 태어나 사는 것이 낫다.
37. 사후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1. 진리에 눈을 떠라. 성경에 눈을 떠라.
2. 자기를 구원할 자에 눈을 떠라.
3. 타인의 욕성에서 나오는 말과 악인의 말에서 귀를 멀리하여라. 또한 자기 욕성과 인성에서 나오는 말에서도 귀를 멀리하여라.
4. 성자와 선생과의 사랑은 가까우나, 형제끼리의 사랑은 멀다.
5. 사랑하지 않아서 그 죄로 사랑의 십자가를 졌다.
6. 남녀 사이도 남자는 사랑하는데 여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십자가를 져 줘야 사랑의 죽음에서 살리게 된다. 그리고 다시 사랑해 줘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7. 지구는 육과 같고 천국은 영과 같다. 고로 때가 되면 지구도 육신 끝나듯 끝나고, 영만이 천국과 함께 영원히 빛난다.
8. (시편 102: 26~27)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9. ‘양심’이 정상이어야 자기 행위와 타인의 행위를 정확히 측정한다. 양심이 고장 나면 고장 난 저울같이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
10. 양심은 어진 마음으로서 마음과 생각과 사물과 행위를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며,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선인지 악인지 정확히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다.
11.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나 양심이 온전할 때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일직선으로 연결됐다 할 수 있다.
12.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데, 저마다 각각 차원이 다르다. 하늘의 양심을 가진 자가 있고, 자기 수준의 양심을 가진 자가 있다.
13. 육계에서는 마음·정신·생각이 기본으로 중요하다. 고로 마음·정신·생각을 잡은 자는 마치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잡은 것과 같다. 그리고 마음·정신·생각을 잡고 성자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과 같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성자의 마음으로 잡고 행하는 자는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와 똑꿀처럼 딱 붙어서 사는 자와 같다.
14. 수도승이 50년 동안 수도생활을 했어도 인식을 잘못하고 하면 헛된 인생길을 간 것이다.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영계에 가면,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잘못 인식하고 산 그대로 자기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이는 절대적이다.
15. 옳은 인식을 하여라. 환난 때나, 고통을 받을 때나, 어려울 때나 올바른 인식만 하면 다 이긴다.
16.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성자와 온전히 일체 되면, 그 혼도 온전한 혼체가 되고, 그에 따라 영도 온전한 영체가 되어 휴거된다. 자기가 양심의 저울에 달아 보면 자기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지 안다.
17. 온전하지 못한 자는 어디를 가도 주님은 온전하지 못한 자 취급을 하신다.
18. ‘온전한 마음·정신·생각이다!’ 마음·정신·생각이 온전하면, 마치 금고의 문을 잠가 놓은 것 같아서 누가 함부로 금고

안에 든 것을 못 꺼내 가듯이, 사탄이 자기 뜻대로 못 한다.

19. 온전한 마음·정신·생각이 온전한 혼체다.

20. 기도할 때의 마음·정신·생각이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러다가 눈을 뜨면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 접하니, 마음이 또 바람 불 때의 바닷물같이 출렁인다. 썩 잡아라! 내가 못 잡으면, 사탄이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잡는다.

2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썩 받아들이고 살면, 삼위일체가 그 몸을 쥐고 있게 된다. 고로 사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빛이 있는 데에 어둠이 못 오듯 한다.

22. 욕이 죄짓기 전에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적 상태에서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니 즉시 말씀의 법으로 죄짓는 생각을 썩 없애야 된다. 이때 “사심아! 욕의 생각아! 물러가!” 하고 다스리면 썩 물러간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니 자기 마음과 행실을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23. 설교 때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하며, 말씀의 칼자루를 쥐고 자기 육성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라.

24. 혼체가 온전해지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자기에게 실력이 없으니 성자께 물어보고, 아는 자에게 물어보아라. 이는 답안지가 있는 자에게 묻고 온전한 답을 쓰는 것과 같다.

25. 완성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100% 성자 주님께 간다.

26. 휴거의 답은 ‘회개와 사랑’이다.

<2012년 11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예정은 있으되,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의 예정이 아니다.

2.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 예정해 놓으셨다. 절대적인 법만 예정이다. 나머지는 인간의 자유의지 속에서 각자 얼마나 자기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3. 자기의 선악 간의 행위에 따라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

4. 길 자체가 정해져 있지,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5. 인간은 노력하고 행하는 대로 운명이 바뀌는데 앞뒤로, 혹은 보다 높게, 혹은 보다 낮게 운명이 바뀐다.

6. 길 자체를 절벽 길로 가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이것이 신이 내게 정해 준 운명이다.” 하고 간다.

7. 신이 예정해 놓은 길은 생명길이다. 죽음의 고통 길이 아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통 길로 가는 이유는 자기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고통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행위를 바로잡으면, 자기 행위에 따라 고통 길을 벗어나게 된다.

9. 못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

10. ‘십자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사명을 잘하더라도 그 사명을 하면서 지는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 둘째, 사명을 못 해서 지는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

11. 십자가를 지려면 사명을 하면서 그 사명으로 인한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12. 사명을 못 해서 지는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이며 희생의 십자가다. 구원받을 자들이 사명을 못 하면, 구원받을 자들은 그로 인해 형벌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자는 희생의 십자가를 져서 그들을 구원한다.
13. 지금도 따르는 자들이 자기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을 하지 않으면서 구원만 받으려고 한다. 고로 자기가 질 십자가를 구원자가 지게 한다.
14. 행해도 십자가를 지고, 행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진다. 행하면 행함으로 인해 오는 고통의 십자가이지, 형벌의 십자가는 아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형벌의 십자가를 진다.
15. 구원자의 십자가는 자체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 사명을 못 하고 책임을 못 함으로 인해 지는 십자가다.
16.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졌느냐. 따르는 자들과 세상 죄인들과 무지자의 잘못으로 십자가를 졌느냐.
17. 섭리사도 마찬가지다. 성자도, 그 분체도 따르는 자들과 세상 죄인들과 무지자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게 된다.
18. 자기로 인해 지는 십자가도 있고, 타인으로 인해 지는 십자가도 있다.
19. 분별하려고 쪼개는 것이며, 분별했으면 쪼개는 것이다.
20. 기도가 검이다. 도끼다. 기도로 쪼개진다.
21. 기도해야 분별된다.
22. 사연이 있는 곳에 몸부림이 있는 것이다.

<2012년 11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서나 영계에서나 보이는 것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흐지부지하게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기 마음·정신·생각·행위가 흐릿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완전하게 생각하고 행하면, 꿈에서도 영계에서도 확실하게 보인다.
3. 육신의 생각과 행동의 반응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4. 꿈에 보이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다. 첫째,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꿈에 보인다. 둘째,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가 꿈에 보인다. 고로 꿈에 보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5. 꿈은 하나의 현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다. 육계에는 없는데 영적 현상에 의해 보이는 것이 있고, 육계에는 없는데 영계에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한다.
6. 자기의 정신과 행위와 급수대로 꿈에서 혼체가 활동하게 된다.
7.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꿈의 세계로 계시해 주기도 하신다.
8.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도 자기가 구할 조건이 있어야 구하게 된다.

9. 조건이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구하게 된다.
10. 가령 어떤 사람이 그 회사 일을 해 줬으면, 그 공적의 조건으로 회사에 구할 것을 구하게 된다.
11. 주님께 구하는 자도 역지로 안 구해진다. 자기가 주님께 한 일이 있어야 자동적으로 구해진다.
12. 자기 행위대로 구해진다. 역지로 구해지지 않는 것이다.
13.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조건으로 구해진다.
14.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조건으로 순리적으로 그에게 구하게 된다.
15.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가 말을 안 해도 주듯이, 자기가 사랑하면 누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랑의 조건으로 인해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게 된다.
16. 주님을 사랑해야, 누가 말을 안 해도 사랑의 반응에 의해 '기도'로 주님께 구하게 된다.
17. 구하지 않는 자는 있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적이 없고 조건이 없어서 안 구해지는 것이다.
18.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께 구하지 않는다.
19. 조건이 없어도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 구하는 것이 조건이기 때문이다.
20. 구하지 않았는데 주면, 받아도 귀히 쓰지를 않는다.
21. 주님께 구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고, 자기가 찾고 노력해서 자기 책임분담에 의해 얻어야 될 것이 있다.
22. 합당하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은 합당한 만큼 주신다.
23.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만큼 필요한 것이 있으니 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님도 주신다.
24. 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자는 그만큼 필요한 것이 많으니 주님께 많이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많이 받게 된다.

<2012년 11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자기가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주듯이, 자기가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구하게 된다. 주님과 우리도 그러하다.
26. 주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구해지지도 않는다.
27. 진정 사랑하게 되면, 누가 구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만 좋아서 구하게 된다.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야 좋기 때문이다. 주님께도 그리해야 된다.
28. 주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주리라.” 하심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29. 구하지 않는 자는 실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30. 주님은 주님께 구하지 않는 자를 보시고,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 빈 그물만 건지듯이 실망하신다.

31. 주님을 진정 온전히 사랑하면서 구하여라. 그러면 바로 받게 된다.
32. 조건을 걸고 구하여라.
33. 주님은 없어서 못 주지 않으신다. 구하지 않아서 못 주신다.
34. 주님은 없으면 작게라도 주시고, 후에 크게 주신다.
35. 구할 때는 한두 번 구하고 말지 말고, 오래 구해야 된다. 총 쏘듯이 한 번 ‘빵’이 아니다. 장소를 정해 놓고서 걸어 가든지, 차로 가든지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36. 과일즙을 먹기 위해서는 과일즙을 짜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구하는 기간, 즉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37. ‘기도하는 기간’은 과일즙을 먹기 위해 짜는 시간과 같다. 과일에서 즙이 다 나올 때까지 짜듯이, 주님이 주실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3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38. 주님이 자연 계시를 보이시는 것은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그같이 하면 된다.’ 함이다. (고로 기도하는 기간을 말씀하시며, 과일에서 과일즙을 짜내는 시간을 자연 계시로 보여 주셨다.)
39. 자연 계시를 통해서 간접적인 답안지를 준 것이다.
40. 자기가 먹고 싶은 과일을 손으로나 기계에 넣고 짜듯이, 두 손을 모으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모으고 주님께 간절히 힘껏 짜면서 구하는 것이다.
41. 과일은 짜야 즙이 나온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울고 짜야 과일즙이 나오듯 주님이 주신다. 과일은 손으로 짜고 기계로 찐다. 우리가 얻을 것은 기도함으로 마음·정신·생각으로 짜는 것이다.
42. 입으로 과일을 먹듯이 주님께 쉽게 구하면, 정말 얻기 어렵다.
43. 사과, 포도 등 과일을 손에 넣고 힘껏 짜야 즙이 나오듯, 주님을 꽉 붙잡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서 구하여 짜내야 된다.
44. 구하는 것도 술법이다.
45. 노동해서 원리 원칙으로 얻으려면 인생 늙고 골병든다. 그 힘을 주님께 구하는 데 쓰면, 그 힘의 반이나 3분의 1만 가지고 써도 얻게 된다. 고로 시간을 벌고, 일찍 얻고, 청춘이 늙기 전에 얻어서 쓰고, 갈 길을 가며 희망을 누린다.
46.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하면 초고속으로 얻는다.
47. ‘사랑’은 초고속이다. 빛이다.
48.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가지고 계신다. 고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구해야 쉽게 주신다.

<2012년 11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49. 과수원지기가 과일을 얻기 위해서는 과일나무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크고 익어 맛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수고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제시간, 제때다. / 기도하여 주님께 구하는 것도 그러하다. 과일을

연을 때까지 땅을 깊이 파서 퇴비하고, 물을 주고, 소독해 주면서 과일을 위해 희망으로 끝까지 일하듯이, 자기가 주님께 구해서 얻으려면 그에 해당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간구해야 된다.

50. 과일나무를 오랫동안 정성껏 관리하고 키워 열매가 열려 다 크고 익어서 맛이 들고 있다. 거기서 열흘만 더 기다리면 열매가 완전히 익는데, 급하다고 열흘 전에 따면 그동안 수고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전도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그 생명이 스스로 확실히 믿고 행하게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급히 가르쳐 버리고 억지로 하게 하니 맛있는 과일같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그같이 힘들게 관리해 줘야 된다.

51. 자동차를 맞추었으면 다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자기 친구들과 놀러가야 된다고 해서 90% 만든 것을 그냥 뒀다고 가져다 쓰면, 돈은 돈대로 주고 늘 아쉽게 타야 된다. / 구하는 것도 조금하게 하지 말고, 구하면서 끝까지 기다려라.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니, 더 좋게 해서 주려고 하신다. 고로 희망으로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이 주려고 여건을 만들고 계시니, 주시는 주님께 힘을 드리고 기쁨을 드려라.

52. 구할 때는 중도에 그만두지 말고 계속 구하면서 주님의 눈만 쳐다보고 얼굴만 쳐다보면서, 마치 애완견이 주인이 가지고 다니는 음식을 보고 따라다니듯 해야 된다.

53. 네가 구했어도 주님은 네 생각대로 안 주시고, 다른 방법과 방향으로 주실 때가 많다. 이는 주님 뜻에 의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야 받았어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54. 주님의 신부라면, 받아도 신랑인 주님과 같이 쓰니까 꼭 주신다. 신부는 신랑 주님께 구하여 얻고서 꼭 주님과 같이 써야 된다. 종처럼 형제처럼 혼자 쓰면, 주님이 주고 나서 실망하신다.

55. 구하다가 의심하거나, 구하는 것이 힘들다고 중간에 구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마치 사과나무에 꽃이 필 때까지 가꾸다가 버리고 간 것과 같다. 이만큼 행해 놓고 포기했으나, 다시 주님께 구하면서 수고하며 끝까지 하면 결국 얻게 된다.

56. 한 생명이 잉태되어 때가 되어 탄생될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기간이 필요하듯이, 구한 것도 그에 따라서 얻는 기간이 필요하다.

57. 끈질겨야 구하고 얻게 된다.

58. 구한 것은 작든지 크든지 받게 된다. 단, 연을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니 ‘인내’로 얻게 된다.

59. 기도해서 얻는 것도, 끈질기게 기도해야 육계를 거쳐서 영계에 들어가서 얻게 된다.

60. 잠언 말씀도 100개를 얻으려면 그만큼의 기도와 시간이 필요하다.

61.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지쳐서 그만뒀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보니 그 생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었다. 때가 되니, 그동안의 수고로 인해 다른 공적자가 인도하여 나온 것이다.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으니 끝까지 열심히 하여라.

62. 주인 없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알고 보니, 주인이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나무를 가꾸다가 비바람이 치니 낙심하고 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니, 과일나무가 열매를 열고 열매가 크고 익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따 가라고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63. 주인을 찾아 과수원에 데려가서 풀밭에 과일들이 벌겍게 열린 것을 보여 주며 “과일나무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과일을 따 가라고 주인을 찾아 눈 빠지게 기다립니다.” 하니, 주인은 감격하여 지난날 수고를 생각하며 울었다.

64. 자기가 수고한 것은 주님께서 그 본인에게 돌려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조금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65.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때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이다.
 66. 수고한 것을 끝까지 안 하면, 사탄과 악인들이 거둬 가게 된다.
 67. 매일 뿌리고 가꾸는 자는 매일 얻게 된다.
 68. 과일이 조금씩 익는 중이니, 낙심 말고 날씨가 좋도록 기도하여라.
 69.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면 자기가 가꾸는 수고도 해야 되지만, 기후, 바람 등 자연적 요소가 큰 영향을 주니 태풍이 없도록,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전도하여 생명을 얻는 것도 그러하다. 너에게, 그 생명에게 시험과 핍박이 없도록 기도하고, 혹여 시험과 핍박이 오면 이기도록 기도하여라.
 70. 딸기나 앵두같이 몇 주 만에 금방 크고 익는 과일이 있는가 하면, 사과나 배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크고 익는 과일이 있다. 하늘 생명도 그러하다.
 71. 생명을 얻으려 하는 자는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여인같이 각오를 하고 느긋하여라.
 72. 태 안에 아이를 가진 자가 힘들다고 아이보고 빨리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빨리 나오지 않는다. 순리다. 정한 때다. 생명의 탄생도, 모든 것도 그와 같다.
 73. 저마다 구한 것을 얻을 때가 있는데, 구하는 자가 급하다고 해서 때가 되기 전에 그것이 날아오지 못한다.
 74.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 놓고서 아예 여름이나 가을이 와야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는 거둔다는 것을 생각에서 잊고 산다. 농부는 '때'를 알기 때문이다.
 75. 저마다 기도한 것은 때가 돼야 얻는다는 것을 알고, 때가 되기 전까지 얻을 것을 잊고 살아야 지루하지 않다.
 76. 끝에서 끝이 나는 것이다.
-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여건으로 역사를 엮어 나가신다.
2. 정신 안 차리고 살면, 다 잃어버리고 알몸뚱이로 살게 된다.
3. 줄 때 기록하지 않으면, 밑 빠진 항아리다.
4.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 때문이다. 하나님과 주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때문이다.
5.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주님 때문이다. 결국 도우신 이는 하나님과 주님이셨다. 하나님과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려고 지난날을 생각하고, 나와 따르는 자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려고 지난날을 생각한다.
6. 지난날 옛 시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왔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혼자 온다고 길동무로 잠시 동행하게 하신 것이다. 지금 그들은 다 늙어서 자기 삶만 바쁘게 산다.
7. 나그네가 먼 길을 가다 보니 정자에서 잠깐 쉬기도 하고, 길옆의 샘물을 먹기도 하고, 밭이랑에서 김매는 여인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길을 물으면서 왔다. / 이와 같이 주님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과정에서 내 인생도 많은 길손님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주님이 사람을 시켜서 나를 돕게 하기도 하셨다. 지난날을 회상함은 그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려고 회상한다.

8. 내가 그곳을 다닐 때 샘에서 물이 넘쳐흘러 목이 탈 때마다 주님과 함께 마시며 그 샘이 쓰였다. 지금은 도시가 되어서 샘은 없어졌고, 그 배경도 사라졌다.

9. 모두 지난날을 생각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라. 지난날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주님의 몸이 되어 이 시대 일을 부지런히 행하며 재림 전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

10. 신부가 신랑에게 빗지고 결혼식을 올리면 꺼림칙하고, 꿈꿨고, 면목 없다. 신랑 되신 주님은 흠 없이 단장하고 오신다.

11. 진정 사랑하니 화날 일을 해도 사랑해진다.

12. 마음의 화도 사랑을 못 이긴다.

13. 사랑하는 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화난다.

14. 칭찬받으러 왔다가 책망받으면, 애인도 황당하여 마음 꺾인다. 사랑의 몸이 있으니 다행이다.

15. 사랑하니 어찌할 수가 없다.

16. 온전한 사랑은 바위같이 무거워서 극적으로 화가 나도 못 버린다.

17. 사랑하는 자에게 큰 매는 큰 사랑이다.

18. 사랑하는 자로 인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풀려면, 사랑하는 자가 확 사랑해 줘야 된다.

19. 지혜자의 매는 사랑의 매다.

20. 사랑하면 보고 싶고, 미워지면 생각조차 하기 싫다.

21. 사랑하면 좋아하는 것이다.

22. 사랑하면 자기 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다.

23. 사랑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다.

24. '사랑'은 자기 몸으로 삼는 것이다.

25. 사랑하면 자기 마음을 다 주고서 그를 따라다니고 싶은 것이다.

26. 진정 사랑하면 자기를 잊어버린다.

27. 하나의 샘이라도 사랑하면 단물이 나오고, 미워하면 쓴물이 나온다.(하나의 마음이라도 사랑하면 단물이 나오고, 미워하면 쓴물이 나온다.)

28. 사랑하면 지름길의 삶이요, 미워하면 돌아가는 삶이다.

29. 절벽도 솟아나게 할 수 있으나, 사랑하지 않고서는 힘들어서 못 한다.
30. 사랑은 원자폭탄 같아서 서로 터트리면 서로 죽는다.
31. 미움으로는 사랑하는 자를 못 이긴다.
32. 땅에서 솟아나는 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물은 다르다. 사랑도 땅에서 솟아나는 사랑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사랑은 다르다.
33. 양이라도 염소같이 행하면 성격은 염소가 된다.
34. 처음 가는 길이니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앞에 주님이 가신다. 빨리 뛰어가 보면, 내 앞에 가시는 주님의 뒷모습이 보인다.

<2012년 11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지켜 줌을 받기 위해서 뛰고 달려야 된다.
2. 자기 죄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까지도 회개하여라. 그러면 자기뿐 아니라 모든 자들까지 깨끗하게 되니, 결국 자기도 더욱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
3. 죄는 자기 죄와, 가정의 죄와, 민족의 죄와, 세계의 죄가 연관되어 있다.
4. 개인이 형제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5. 자기가 더럽게 하지 않은 것이라도 자기가 청소하면 깨끗하게 되듯이, 자기 죄가 아니더라도 형제와 민족과 세계의 죄를 기도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용서하신다.
6.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도 눈물을 흘리신다. 사랑의 눈물이다.
7. 하나님의 눈물은 지상의 사랑하는 자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다.
8.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듯이, 애인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눈물을 흘리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신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어느 때는 눈물을 안 보이신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심정의 눈물을 흘리신다.
10.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눈물을 흘리신다. 심판받지 않을 자가 자기 행위로 인해 심판을 받으니, 안타깝워서 흘리는 심정의 눈물이다.
11. 자기가 자기를 심판받도록 행하며 살았다.
12.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하고 외면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전능자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썩은 시체가 되어 있다. 심판의 날은 실상 버리는 날이다.
13.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자는 역시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대상이다.

14.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사랑해 주어 눈물이 없게 해 주는 자가 곧 하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15.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주인공은 죽음의 웃음을 지으며 살고 있다.
16. 그가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을 확실히 아는 자는 그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게 된다.
17. 죽음의 세계로 가는데도 모르면서 웃으면서 간다. 이를 아는 자는 눈물이 나는 것이다.
18. 눈물을 흘리며 울 사람도 너무 어이가 없으면 눈물이 안 나온다.
19.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자의 눈물을 안 보려 하신다.
20. 원통하고 분통하고 서러워서 속으로 눈물이 쏟아져도, 그것을 소화시켜 버리는 자도 있다.
21. ‘대상’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22. ‘주체’는 사랑을 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 → 여기까지 하늘과의 사랑을 말했다. 다음 잠언부터는 사람과의 사랑을 말하며, 무엇이 죄가 되는지 말한다.
23. 서로 마음을 줬으면, 마음과 몸을 모두 주어 실상 서로 사랑한 것이다.
24. 사랑한 것을 분야별로 쪼개서 보자. 눈으로 보면서 사랑한 것, 마음으로 사랑한 것, 대화하면서 사랑한 것, 몸으로만 사랑한 것, 놀면서 사랑한 것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서로 좋아서 마음을 주면서 사랑했으면 사랑한 것으로 인정된다. 마음을 주는 것이 그리 크다.
25. 자기만 좋아서 사랑했으면, 짝사랑으로 인정되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된다.
26. 상대가 께어서 그 께에 넘어가 사랑했어도 사랑의 죄를 지은 것이다.
27. 자기는 사랑하기 싫는데 상대가 사랑하니 응한 것도 사랑의 죄를 지은 것이 된다. 단, 싫은 것을 했으니 다음에는 다시는 그와 사랑하지 않게 될 것이다.
28. 께을 받아 사랑한 것을 알고 나면, 다시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29. 남녀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쪼개어 다루고 판단하시는지 봤다. 마음으로만 사랑했어도 혼체가 사랑했으니 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육으로 안 한 것은 육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30. 육도 마음도 사랑하면, 영계에서 육도 마음도 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영은 안 했어도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었다.
31. 영은 원치 않는데 자기 육신이 행하면, 영도 한 몸이니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안 되고, 손해만 가고, 시간만 간다.
2. 자기 계시는 자기가 ‘기본’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3. 계시를 잘 보아라. 그때마다 자기에게 필요한 계시다.
4. 하나만 보아라. 그래야 독수리눈같이 잘 보이고 깊이 알게 된다.
5. 내 계시와 성자 주님의 계시가 칼날 위에서 갈려 간다.
6. 내 계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성자 계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7.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8. 왕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제재를 받지 않고 행하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때’를 정하고 행하신다.
10. 잠언은 설명을 안 해야 각자 처한 대로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된다.
11. 작은 읍내인 진산 자체에는 차들이 별로 없다. 도로를 개통하여 도시인 전주 쪽에서 와야 차들이 많다. 이와 같이 인간 자체에서 오는 지혜의 말씀은 별로 없다. 성자와 개통하여 성자로부터 와야 지혜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
12. 월명동 자체에는 차들이 별로 없다. 외부에서 와야 차들이 많다. 이와 같이 자기 자체의 생각과 지혜는 별로 없다. 오직 성자 주님께로부터 와야 생각과 지혜가 많고도 많다.
13. 성자 주님과 막혔던 길과 시간과 사랑을 개통하여라.
14.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개통하면 자기에게 유익이고, 전체에 해당되는 것을 개통하면 전체에게 유익이다.
15. 욕적으로 개통하면 욕적으로 얻고, 영적으로 개통하면 영적으로 얻는다.
16. 누구든지 자기 차원에서 욕계나 영계를 보고, 수고하여 얻는 것이다.
17. 어느 차원에 있는 어떤 사명자가 보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18. 왕이라도 항상 편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자기 몸과 같기 때문이다.
19. 자세만 달리해도 생각이 달라진다.
20. 앉아서 잠언을 쓰다가 엎드려서 쓰니,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었다.
21. 몸도 눈과 같다. 눈이 보는 대로 달리 보이듯이, 사람이 행하는 대로 달리 생각된다.
22. 생각 따라 몸이 가지고 몸 따라 생각도 가지는 것이다. 차가 앞과 뒤로 가지듯 하는 것이다.
23. 행동 따라 생각이 나타나고, 생각 따라 행동도 나타난다.
24. 깊이 파야 보석 같은 돌이 나오듯, 깊이 파야 솟는 물이 나오듯, 생각을 깊이 하면서 전능하신 성자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주님도 깊은 이야기를 해 주신다.
25. 깊은 이야기다. 깊은 기도다.

26. 말씀을 지키며 화평하게 사는 자가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사는 자다.
27. 신령한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고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자는 욕에 속한 자다.
28. 죄짓고 회개하는 자는 영혼이 살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죽는다.
29. 저마다 새벽을 개통하여라. 영적으로 욕적으로 얻는 것이 많다.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30. 영급이 높은 자는 어디에 있어도 높은 차원에 계신 성자 주님과 통한다.
31. '참사랑'은 높은 주파수다.
32. '참된 시대 진리'는 높고 높은 주파수다.
33. 지혜자는 얻고, 미련한 자는 버린다.
34. 하늘의 본체는 땅의 본체다. 교통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시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35. 옆에 있어도 교통하지 않으면 안 통한다.
36. 앞에 있어도 개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 주도 그러하다.
37. 하늘과 땅을 알고, 주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라.
38. 한 겹 줄은 약하다. 하늘과 땅, 두 겹 줄을 잡고 천국까지 올라라.
39. 발견하고도 제 것으로 못 만드는 자는 미련한 자다.
40. 시대 보낸 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자다. 새 시대는 시대로서 가장 큰 시대다.
41. 먹지 않은 과일은 영양이 올 수 없다.
42. 시대 말씀을 먹어라.

<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43. 혼자 놀다가 들판의 병아리가 된다. 귀여워서 어린아이들이 가져가고, 먹으려고 큰 새들이 잡아간다.
44. 사냥자들과 포식자들은 자기 생활의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생명을 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45. 당하는 편은 그 어떤 것도 생명 사냥으로 본다. 그 선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다.
46. 어느 편에서 보는지가 문제다.
47. 하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을 단속하여라.

48. 개통과 단속이다.

49.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철저히 단속하여라.

50. 마귀 사탄을 단속하고, 악한 자들을 단속하고, 운명을 달리하고 마음이 변질되어 나간 자들을 단속하여라.

51. 거죽은 양, 속은 이리들을 모두 단속하여 양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하여라.

52. 성자 주님은 주께 거짓말하는 자와 변명하며 핑계 대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거짓말과 핑계대로 그냥 놔두신다. 고로 그 짓값을 자기가 모두 받게 된다.

53. 산 주인이 바뀌어도 산의 나무들도 돌들도 물도 모른다. 주인이 나무들과 돌들과 물을 귀히 보니, 그제야 더욱 빛나는 것을 알고 좋아하며 기뻐 된다.

54. 주인이 바뀌니 작은 산도, 큰 산도 단장하여 빛이 난다. 고로 주인이 더욱 사랑하며 기뻐한다.

55. 산을 사서 잡초는 베고, 가시나무는 모두 캐내고, 나무를 가꾸고, 돌들과 바위들을 단장시키고, 샘을 파서 물이 흘러가게 하고 물이 솟게 만드니, 이상(理想) 동산이 되었다. 전 주인들이 구경하고 감탄하며, 산의 돌과 바위와 나무와 물이 기뻐하며 손뼉치고, 주인을 끌어안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한다.

56. ‘사람’은 가꾸고 만들면 한때이고, 만물인 돌과 나무와 물을 가꾸면 영원하다.

57.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사람도 있고, 주도 있고, 전능자도 있어야 이상세계다.

<2012년 11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58. 도로를 개통하면, 차들이 하루만 많이 지나가고 말지 않는다. 고속도로처럼 매일 오고 간다. 주와도 그러하다. 주와 개통하면 항상 교통한다.

59. 매일이다. 주와 육의 개통을 하면, 지혜와 지식과 축복과 원하는 것들이 시골길의 차량같이 적게 오고, 주와 영의 개통을 하면 지혜와 지식과 축복과 원하는 것들이 고속도로의 차량같이 많이 온다.

60. 하늘이 큰 자를 보낸 것은 모두 그를 쓰라고 함이다. 그런데 그를 쓰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쓴다. 고로 냇가에서 배 띄운다.

61. 큰 자는 강이요, 바다다. 자기는 냇물이다. 기다리는 자는 배다.

62. 자기와 같은 종자끼리는 뭉쳐서 공격하면 큰 자도 당해 내고 이기지만, 타 종자는 뭉치고 공격해도 큰 자를 못 당해 낸다. 이는 마치 개미끼리는 뭉쳐서 싸우면 상대를 당해 내고 이겨도, 종이 다른 코끼리는 뭉쳐도 못 이기는 격이다. 하늘이 보낸 자도 코끼리와 같아서 그러하다.

63. 행악자는 과정에서 존재하다가 끝난다. 지나가는 소낙비다.

64. 세상은 하늘이 시대에 보낸 자의 ‘몸’은 끌어가도 ‘마음’은 못 끌어간다. 이는 그의 마음이 세상에 끌리지 않기 때문이다. 사탄도 못 끌어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끌어가겠느냐.

65. 주님은 주시고, 세상은 받아 간다.

66. 주님이 주셔도 못 받는 자는 도리어 화를 받는다.
67. 순종치 않은 자들이 당세에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사탄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
68. 오직 주만 주고서 뺏지 않으신다.
69. 주가 주셨으나 순종하지 않으니 뺏긴다.
70. 행할 때 느끼고 실감하게 된다.
71.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를 알고 믿고 사는 자만 하나님과 자기의 참존재를 실감하고 느낀다.
72.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신이 되어 사는 때다. 인간이 신이 되어 살고 있는 때다. (어떤 말인가? 다음 잠언을 들어 보자.)
73.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 계신다. (어떤 말인가? 다음 잠언을 들어 보자.)
74. 육신을 신으로 만들어라. 혼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혼체를 신으로 만들면, 육체가 신의 몸이 된다.
75. 전능자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신의 마음·정신·생각이 되고, 자기 혼이 신이 된다. 고로 육이 신의 삶을 살게 된다. 고로 자기 영이 온전한 신이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76. 과학자들아, 우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도 신기하고 중하냐. 우주 위에 전능자와 수천억의 영들이 살고 있다. 또한 그곳에는 물뿐만 아니라 바다도 있고, 지구 크기만 한 각종 보화들이 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77. 육은 육의 것을 발견하고, 신령한 영이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발견한다.
78. 아름답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사랑하지 않기에 아름답게 만든 것이다.
79.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야 사랑하고 좋아한다.
80. 4배나 더 크게 만드니,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했다.
81. 창조주가 계획하고 만든 작품이라서 존재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82. 인간은 창조주의 구상의 한계를 못 넘는다.

<2012년 11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사람은 성자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통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 주님이 멀리 계신데도 통한다.
2. 각자의 '마음'에 따라 성자 주님과도 통하고, 성령님과도 통한다.
3. 인간이 신과 통하는 방법이 있다. '마음'으로 통한다.
4. 마음이 준비돼야 주와 통한다.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주가 문을 두드려도 못 통한다.

5. 주가 오고 가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6. 사람은 신과 통하는 마음이 뚫려 있어야 된다.
7. 방송국에서 늘 방송 전파를 쏘듯이, 성자 주님은 영파로 하늘의 말씀을 쏜다. 마음이 준비된 자만 받는다.
8.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뇌의 구조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통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깊이 기도해야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9. 대화와 기도는 다르다.
10. '기도'는 하늘에 드리고 올리는 것이다.
11. '대화'는 상대를 놓고 말하며, 말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12.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서 성자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
13. '계시'는 현장에서 대화하며 받는다.
14. 마음이 주님께로 뚫려 있으면, 주가 와서 말씀하신다.
15. 전화가 오면 제시간에 받아야 대화가 된다. 전화가 올 때 안 받으면, 메시지만 입력해 놓기에 전화 온 것만 알게 된다. 주님과도 그러하다.
16. 세상이 발달되니, 비유로 들 것이 많다.
17. 스마트폰은 뇌와 비슷한 것들이 많다. 뇌는 스마트폰보다 수만 배 이상적으로 창조되었다.
18. 이상적으로 만들어 났어도 모르면 못 써먹는다. (스마트폰을 잘 만들어 났어도 모르면 못 써먹듯이, 뇌도 그러하다.)
19. 인간끼리 통하라고 뇌를 만들어 놓으셨고, 자기 삶을 위해서 쓰라고 뇌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라고 뇌를 만들어 놓으셨다.
20. 인간이 먼저 신과 통하는 법을 배우고 통해야 된다.
21. 신과는 영파와 정신파로 통한다.
22. '인간과 통하는 것은 쉽고, 신과 통하는 것은 어렵다.' 인식하고 사니, 인간에게 신과 통할 수 있는 기구가 다 갖춰져 있어도 못 통하는 것이다.
23. 성자 주님과 일체 돼야 통한다.
24. 일체 됐다는 것은 같은 주파수라는 말이다.
25.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이야 통한다.
26. 눈으로 같이 봐야 같이 볼 수 있듯이, 마음도 같아야 같이 느끼고 통한다.

27. 영의 세계는 ‘마음’으로 통하는 세계다. 고로 영계에서는 모든 대화를 ‘마음’으로 한다. 마음이 귀다. 마음이 입이다. 마음이 눈이다. 고로 영계에서는 ‘말’로 안 한다.
28. 영계에서는 같은 심정을 가져야만 통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대화가 된다.
29. 통하는 만큼 차원 높은 자다.
30. 성자 주님의 깊은 것도 자신의 사명으로 알게 되고, 자신의 심정으로 알게 되고, 자신의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알게 된다.
31. 뇌는 마음으로서 영계에서는 뇌, 곧 마음이 눈이며 귀다.
32. 영의 세계의 것을 보고 들을 때는 육의 눈과 귀가 필요 없다. 마음이 눈이고 귀이기 때문이다.
33. 영계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고, 마음의 귀로 들으면 들린다.
34. CT 촬영을 하면, 화면에 촬영한 실체가 보인다. 마치 거울에 비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마음에 생각하면 뇌의 영상으로 보인다.
35. 모를 때는 이해가 안 가고 안 믿어진다. 알면 쉽게 이해가 가고 믿어진다. ‘마음’은 반사거울과 같다.
36. 거울은 비추는 대로 잡혀 보이듯이, 마음도 그러하다.

<2012년 11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37. 사람은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을 뇌에 저장한다.
38.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뇌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생각하려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본 것과 들은 것이 생각난다.
39. 육의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가 최고 사실적이다.
40. 뇌는 일반적으로 볼 때 카메라만 못하다.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나중에도 늘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뇌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봤던 현실의 상황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41. 영계에서 보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보다,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보다 100배 이상 돋보인다.
42. 인간은 눈으로 현실의 것을 보고 그것을 뇌에 저장한다. 인간은 육이라서 눈으로 볼 때만 현실의 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게 창조되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눈으로 본 것을 뇌에 저장했어도 잘 생각나지 않게 창조되었다.
43. 어떤 것은 눈으로 보고 돌아서면, 뇌에서 바로 사라진다.
44. 귀로 들은 것도 뇌에서 사라지고, 눈으로 본 것도 뇌에서 사라진다.
45. 고로 봤을 때 기록이다. 들었을 때 기록이다. 봤을 때 카메라로 찍기다. 봤을 때 그리기다. 봤을 때 녹화다.
46. ‘뇌’는 한계상황을 맞는다. 그러나 ‘기록’은 일생이며 영원하다. 그려 놓고, 찍어 놓으면 육의 세계에서든 영원하다.

47. 영계에서 주를 봐도, 영계에서 나오면 잊어버린다. 고로 늘 주를 생각하며 만나라.
48. 인간은 행할 때만 보고 듣는 것이 실감 나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49. 밥 먹을 때만 맛을 느끼고 수저를 놓으면 즉시 맛을 못 느끼듯이, 인간의 눈도 귀도 뇌도 물체로 창조되었다. 고로 육은 허무하다.
50. 행할 때만 실감하는 인생이다.
51. 애인도, 하나님도, 구세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하며 행할 때만 실감하며 느낀다. 떠나면 희미한 등불과 같이 된다. 꺼진 등불과 같이 된다. 늘 생각해야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된다.
52. 육체는 현실만 느낀다. 손에 닿을 때만 느낀다. 손을 떼면 못 느낀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만 느낀다. 안 보고 안 들으면 못 느낀다. 이것이 육체의 느낌이며, 인생의 한계다. 그러니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계속 생각해야 느낀다.
53. 현실에서 본 것도 카메라나 비디오로 찍어 놓고 수시로 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현실감이 살아 있다.
54. 지난날에 한 말도 현실에 또 해야 기억이 나고 현실감이 생긴다. 그것을 행해야 얻는다.
55. 영은 육보다 기억력이 좋다. 또한 영은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 한계 안에서는 직접 보면서 현실감을 느낀다.
56. 사랑도 마찬가지다. ‘육적 사랑’은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격이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만 따뜻함을 느끼고, 나오면 못 느낀다. 이와 같이 육은 생각하고 행할 때만 느끼니, 늘 생각하고 행하여라.
57. 육체는 서로 ‘몸’이 닿아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못 느낀다.
58. 기록이다. 녹화다. 그리고 늘 봐야 그나마 느낀다.
59. 인간은 느낌으로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간다.
60. 육계는 영계에 비하면, 단순한 세계이며 일순간 존재하는 세계다.
61. 주님을 늘 찾고 부르고 가까이하면서 느끼고 살지 않으면, 천 리나 떨어진 삶으로서 뇌신경이 죽어서 감각 없이 사는 삶이다.
62. 기도하고 생각해야 느낀다. 영계는 생각 실상 세계다.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고로 주님을 생각하여라. 생각하면 실체화된다.
63. 정신세계를 현실화해 놓지 않으면, 구름같이 사라진다.
64. 생각한 것을 수고하여 현실로 만들어 놓으면, 늘 보니 안 잊게 된다.
65. 현실화해라. 실체다. 생각은 무(無)다. 행하여 유(有)를 만들어라.
66. 현실의 것은 늘 보니, 허무하지 않다.
67. 세상에 있는 것도 현실에서 볼 때만 보이고 느껴진다. 시간이 흐르면 순간 사라진다.

68. 우리는 육이다. 고로 성자 주님을 생각할 때만 느껴진다. 고로 늘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69. 일체 돼야 늘 마음으로 느낀다.

70. 일체 안 되면 못 느낀다.

71. 신은 느낌이다. 믿음이다.

72. 육의 세계의 것은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몸에 닿을 때만 느껴진다. 그러다가 육신이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손으로 만져도, 몸에 닿아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조금만 느껴진다.

73. 창조자 하나님도, 구원자 성자도, 그 보낸 사명자도 젊었을 때 믿고 알고 행해야 영이 변화되어 제대로 형성된다. 인생 늙으면 잘 느껴지지 않고, 힘이 없어서 잘 행해지지 않는다.

74. 세상 일도 젊어서 해 놓지 않은 것은 나이 먹어서 못 한다.

7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못 느끼고 모르고 사는 자는 뇌세포가 죽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76.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불러라. 또렷이 느껴진다.

77.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영과 육의 감각과 생각이 또렷해져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느껴진다.

78. 육의 것도 못 느끼면 사고 난다. 영의 것도 못 느끼면 사고 난다.

79. 느끼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다.

<2012년 11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며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도 우리가 못 하면, 때가 있는 고로 떠나신다.

2. 마치 인간의 하루 24시간과 같이 하나님의 때도 인간의 때를 확대하여 정해져 있다.

3. 하루 24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다음 날을 맞아야 되듯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때도 때가 되면 반드시 다음 역사를 맞아야 된다. 하루를 미룰 수 없듯이 하나님의 때도 미룰 수 없다.

4. 제때 꼭 해야 된다.

5. 제때 못 하면, 때와 함께 사라진다.

6. 자기 때가 되든지 시대 때가 되면, 자기 애인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격이 된다. 애인이 옆에 붙어 있을 때 사랑하지 못하면 못 한다. 이와 같이 자기의 때와 시대의 때가 되었을 때 못 하면 때와 함께 기회도 사라진다.

7. '때'는 어느 시대든지 누구든지 좋은 환경에서든지 나쁜 환경에서든지 상관없이 온다.

8. '때'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9.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화장실이 있든지 없든지 때가 되면 내장 기능에 따라서 분비물이 나온다. 하나님의 때도, 인생 각자의 때도 때가 되면 좋은 일이 오기도 하고, 나쁜 일이 오기도 하고, 좋은 일이 떠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떠

나기도 한다.

10. 불의한 환경, 처참한 환경,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때를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기어 올라와서 행복하게 된 것이다.

11. 지난날 때를 놓친 자는 지난날의 시간을 놓치듯 지난날의 것을 놓친 것이다. 또 다른 때가 와서 자기에게 그에 해당되는 때가 왔으니,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12. ‘때’는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다. 자기 책임과 창조주 책임으로 자기 때에 맞는 뜻이 이루어진다.

13. 하나님이 주신 때를 맞아도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 혼자 행하며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사명자와 함께 행하며 사는 자가 있다.

14. 자기 혼자 하는 자는 ‘육’도 육신 세계에서 끝나고, ‘영’도 육에 속해 있다가 결국 사망으로 간다.

15. 하나님과 메시아와 함께 행한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한다.

16. 전능자 하나님도 메시아도 때를 따라 돕고 축복도 하시고, 때를 따라 심판도 하신다.

17. ‘때 심판’이다. 몸의 때도 때가 되면 더는 못 참고 밀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깨끗하게 하신다.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8. ‘하루’만 봐도 때가 되면 해가 떠서 아침이 오고, 시간이 가서 때가 되면 해가 지고 밤이 진행된다. 자정 12시가 되면 1분만 넘어도 다음 날로 바뀌듯이, 역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역사에서 새 역사로 순간 바뀐다.

19. 구역역사도 신약역사도 마치 때가 되니 하루가 바뀌고, 한 해가 바뀌듯이, 그때마다 새 역사로 바뀐 것이다.

20. 하루의 때는 시간을 표준으로 정한다. 시간은 태양을 표준 하여 바뀐다. 시간과 태양은 ‘때’ 의미의 존재물이다. / 시대의 인물과 하늘이 보낸 인물은 ‘태양’으로 비유한다. 때가 되면 태양이 뜨고 지듯이, 때가 되면 시대 세상 인물도 하늘이 보낸 인물도 바뀐다.

21.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했다. 여기서 ‘해’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시대권의 최고의 인물을 말한다. 하늘의 때가 되면 삼위일체가 쓰시는 땅의 사람, 구원자가 바뀐다 함이다. 구원자를 해로 비유한 것이다. <구약> 때는 ‘모세’를 해로 말씀하셨고, <신약> 때는 ‘나사렛 예수님’을 해로 말씀하셨고, <성약> 때는 ‘재림의 사명자’를 해로 말씀하셨다.

22. <구약역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시고 율법을 중시하여 4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이끄셨고, <신약역사>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삼고 신약 말씀을 중시하여 2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이끄셨고, <성약역사>는 성자가 다시 오셔서 재림의 사명자를 구원자로 삼고 성약 말씀을 중시하여 1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이끄신다. 때가 되면 하루가 뒤바뀌고 1년이 뒤바뀌듯이, 개인의 때도, 시대 역사의 때도 새롭게 뒤바뀐다.

23. 때를 모르는 자는 시대가 뒤바뀌었어도 모르고 구역사에서 살고, 때를 아는 자는 새 역사에서 산다.

24. 같은 시대, 같은 마당에서 뛰며 살아도 구시대 인생과 새 시대 인생으로 갈린다.

25. 하루의 때가 바뀌어도 어린아이들은 마냥 오늘을 어제로 알고 산다. 이 시대에도 새 시대로 온 사람들이 구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하다.

26. 때가 되면 시간도 바뀌고, 시대 말씀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해도 바뀐다. 이와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시대 하나님의 사람도 바뀌고, 말씀도 바뀌고, 주권도 바뀌고, 시대 사람들도 바뀌고, 명칭도 바뀐다. 정녕 깨달아라!

27. 때가 지나면 과거의 것들은 사람이고, 물건이고, 역사고, 말씀이고 모두 빛을 잃는다. 고로 여실히 새로운 때가 왔음을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

28. 어제의 역사의 해가 졌으니,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의 역사의 해를 맞고 빛 속에서 사는 자는 시대 표적을 일으키면서 산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에 있는 자들의 인도를 받고 새 시대로 돌아오기도 한다.

29. 해가 진 곳에 있는 자는 눈을 떠도 어둠 속이라 보이지 않으니 소경이다.

30. 해가 있는 곳에 있는 자는 빛 속에서 보고 들으니 소경을 벗어나 기뻐 된다.

31. ‘해’는 새 시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시대 사명자로서 어둠에서 이끌어 빛으로 오게 하는 새 사람, 곧 구원자다.

32. 새 시대에 새롭게 바뀐 사명자를 중심해서 행하는 자는 새 시대 사람이다. 옛 시대 사명자를 중심해서 행하는 자는 구시대 사람이다.

<2012년 11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33. 죄 문제는 각각 해당되는 자에게 용서받는 것이다.

34. 형제는 형제에게 용서받고, 신부는 신랑에게 용서받는 것이다.

35. 만일 신부가 신랑에게 죄를 지었으면, 형제에게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된다.

35. 시대에 지은 죄는 그 시대에 하늘이 보낸 구원자에게 용서받는 것이다.

36. 시대 하늘이 보낸 자가 세상 죄도 대신하고 시대 사람들의 죄도 대신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용서가 된다.

37. 용서를 못 받든지, 용서를 안 해 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게 된다.

38. 시대 하늘이 보낸 자는 삼위일체의 육신 격이다. 고로 그는 상징 인물이다. 그에게 행한 것이 하나님과 성자께 행한 것이 된다.

39. 왕의 명령을 직접 어기지 않았어도 왕이 신하에게 명한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왕의 말을 거역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과 성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신다.

40.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지 모르고서 그 말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미 전능자께서 능력과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 것을 다 해 주셨다. 고로 몰라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형벌을 받는다. ‘때’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과 성자께서 도와주시고, 만물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며 해 줄 것을 다 해 줬기 때문이다.

41. 때는 기회다. 때가 되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온다.

42. 좋은 때에 온전히 다 예비해 놓았다가 나쁜 때에 행하면, 나쁜 때가 와도 다 이기고 해결하게 된다. (뽕들과 잡초들과 가라지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며 핍박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이 고통 받는 때가 됐다.)

43. 자기 좋은 때에 놀다가 나쁜 때가 오면 감당하지 못한다. 풍년 때에 먹고 마시기만 하며 흉년 때를 예비하지 않으면, 흉년 때가 왔을 때 몸부림치며 고생하게 된다.
44. 자기 때가 하나님의 때요, 성령님의 때요, 성자의 때요, 구원자의 때다.
45. 때가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열리고, 화창한 날씨도 오고, 물도 흘러온다. 역시 사람도 온다.
46. 때가 되면 행하게 되기는 한다. 그러나 확실히 자기 때임을 알고, 미련없이 행해야 된다. 사랑할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주를 만날 때도 있다.
47. 자기 때에 자기가 행할 것을 다 행하지 않고 남기면, 남의 때에 남이 자기가 남긴 것을 가지고 간다.
48. 때가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자기 물건을 다 가지고 내리듯 해야 된다.
49. 때가 되면 ‘주권’이 자기 것이다. 이때는 행하여 취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때에 놀고 먹기만 하지 말고, 가을철 다람쥐같이 먹으면서도 물어다가 저장해야 된다. 때 지나면 눈이 덮여서 밤은커녕 땅도 안 보이고, 북풍한설이 닥쳐 추워서 밖에 나올 수가 없다. 그때는 굴속에서 가을철에 저장하고 예비한 것들을 새끼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50. 가을에 미리 예비해 놔야 겨울에 예비한 것을 먹으면서 환난기를 보내고, 새 봄이 와도 봄을 맞고 살게 된다.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51. 예비하지 못한 다람쥐는 굴속에서 떨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행여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눈 덮인 곳을 다닌다. 결국 허리끈을 졸라매다가 굶어죽는 다람쥐도 있고, 배고픔을 견디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다가 봄을 맞는 다람쥐도 있다.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52. 부지런히 이때, 시대의 해가 있을 때 행하여라.

53. <해>는 땅에 보이는 ‘분체 해’가 있고, 안 보이는 ‘성자 본체 해’가 있다.

54. 비유를 든 것이 중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유의 주인공이 중하다.

<2012년 11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때’를 따라 주신다.
2. 기도해서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알고, 희망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3. 때 전에 주면 사랑하는 자에게 손해 가는 것이 있다.
4. 가령 사랑하는 자가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여 정원의 과일이 익지도 않았는데 다 따다 주어 먹게 했다면, 손해다.
5. 월명동도 뒷산 쪽의 100평 정도의 땅이 15년 동안 허가가 안 났다. 애간장이 탔다. 그대로 두기에는 보기 싫어서 우선 돌을 쌓았다. 군에서 또 지적하면 다시 원상복구해 놓고, 행사 때가 되면 다시 돌을 쌓고, 또 다시 헐고... 이렇게 15년 동안 했다. 허가를 해 주지 않으니 15년 동안 기도했다. 허가가 났다면 벌써 돌을 쌓았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돌을 쌓았다가 헐었다가 하냐고 한다.
6. 2012년에 그쪽 땅이 허가가 났다. 그런데 이때는 돌을 구하려니, 돌이 비싸기도 하고 돌도 없는 때였다. 주님께 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으나 돌 광산이 모두 폐쇄되고 없어졌다. 그래도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은 “준비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 하셨다. 후에 돌을 캐는 작은 광산을 찾았고, 거기서 돌을 사다가 쌓기 시작했다.

7. 만일 예전에 그 땅이 허가가 났다면, 보통으로 돌을 쌓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돌이 없었기에 웅장하게 쌓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때’를 정하고 행하신다.

8.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에서 충분히 좋은 돌을 사다가 허가 난 곳에 돌을 쌓게 되었다.

9. 그때는 하나님이 틀어서 안 해 주신 것이다. 때가 되니 해 주셨다.

10. ‘구상’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구상인가? ‘여건 구상’이었다.

11. 하나님은 온 천하에 ‘때’를 정하고 행하신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신다.

12. 한 곳에 돌산을 사 놓고 허가가 났어도 동네 사람들이 틀어서 10년 동안 그 돌을 못 갖고 왔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여건을 만들어 놓고 행하셨다. 원래 돌을 가져오려 했던 곳보다,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신 곳의 돌이 더 크고 길고 좋았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3. 만일 개미가 자기 집 앞에 못 오게 틀면, 꼬끼리는 무력으로 안 하고 다른 데서 일하고 온다. 그때는 한 세월이 다 가서 개미들은 죽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4. 만일 시대 사람들이 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역사를 펴시다가 그곳에 다시 와 보신다. 이미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죽어 있다. 이때는 그 후손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신다.

15. (주 편) 너는 가만히 있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아라.

16. (주 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네가 행하려고 하느냐.

17. (주 편) 인간은 개미와 같다. 애태우다가 만다. 하나님은 개미 앞에 사람과 같다.

18. (주 편) 온 세상의 개미들이 다 모여서 바위를 옮기려 해도 못 옮기고 끝난다. 그러나 인간은 일순간에 바위를 옮겨 놓는다.

19. (주 편) 네가 못 한다. 해 달라고만 하여라.

20. (주 편) 개미는 평생 해도 개미만큼밖에 못 한다.

21. (주 편) 인간은 평생 해도 인간만큼밖에 못 한다.

22. (주 편) 큰 것은 하나님과 나 성자가 하고, 작은 것은 인간이 하게 한다.

23. (주 편) 인간이 아무리 웅장하게 해도 인간이 볼 때 웅장이다.

24. (주 편) 개미는 모래보다 큰 돌을 옮기고서 웅장하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와 보라고 한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25. (주 편) 하나님은 ‘우주’라는 정원을 만드시고 ‘지구’라는 집을 집어 주시고, 이곳에서 인간들을 살게 하셨다. 인간은 기껏해야 정원을 만들고 집을 짓고 산다. 큰일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하고, 작은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는 작은 일도 그나마 하나님이 돕고 함께 행하신다. (아멘.)

26. (주 편) 인간은 나름대로 큰일을 하다 보면, 하다가 때가 되어 죽는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어떤 일을 하실 때 수십억만 년의 시간의 역사가 들어가도 잠깐의 시간으로 알고 행하신다. (아멘.)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27. (주 편) 작은 일은 ‘육’으로 하지만 큰일은 ‘영’으로 해야 된다. 인생 100년이 긴 시간 같지만, 잠자는 시간 빼고, 성장 기간 20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여러 가지 잡시간을 빼면, 인생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할 시간이 4년 정도밖에 안 된다.

28. (주 편) 인생은 금방 늙는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잡시간 빼면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하루 24시간이 일생이라 생각하고 따져 보라. 인생의 시간은 금방 간다.

29. 하루가 번뜩 가고 1년이 번뜩 가듯이 청춘도 번뜩 가고, 중년기도 번뜩 가고, 노년기도 번뜩 간다. 지난날 인생을 살아 보고도 모르느냐. 번뜩 생각하고 깨달아라.

30. (주 편) 오래 살고 싶으나. ‘육’은 모두 정한 시간 안에 죽는다. 그러니 죽기 전에 네 육신의 시간을 투자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너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믿고 네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히 살아라. ‘영’은 안 죽는다.

31. 인간이 ‘희망’도 없고 ‘사는 뜻’도 없으면, 인생을 사는 것이나 안 사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32. (주 편) 하루를 살 때 희망도 소망도 없이 살아 보아라. 살고 싶지 않다. 내게 구하여라.

33. (주 편) 나는 인류의 소망이다.

34. (주 편) 내게 너의 소망을 물어라. 영원한 소망을 물어라.

35. (주 편) 세상 희망은 잠깐 거쳐 가는 것이다.

36. (주 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라!

37. 짐승의 삶은 무의미하다. 이는 ‘육체’만을 위해 살기 때문이다.

38. 인간도 육체만을 위해 살면, 짐승의 삶같이 무의미하다.

39. 육체의 영광, 육체의 영화, 이성 사랑은 모두 무의미하다.

40. 영원한 소망은 영원하신 전능자와 같이 사는 삶이다.

41. 세상 것은 눈 감으면 끝난다.

42. 재벌들을 보면 마치 태양 속에서 살듯이 그 영광과 소망이 빛났지만, 때가 되어 해가 지고 눈을 감으니 그 영광과 소망이 일순간에 끝났다.

43. 해 놓은 자는 60대라도 20대보다 낫다.

44. 젊었을 때 놀지 않고 해 놓은 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가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하루가 1년같이 가치 있다.

45. 할 일을 다 해 놓고 나이 먹으면,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산 것같이 가치 있고 얻을 것을 얻는다.

46. 때를 따라 행하지 못하는 젊은 자가 10년을 살아도, 젊었을 때 해 놓고 사는 자가 1년 산 것보다 못 얻는다. 그러니 누가 억울하게 하고 악평하고 미쳤다고 해도 놀지 말고, 어서 선생을 따라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47. 구시대에서 100년을 살아도 새 시대에서 1년 산 것보다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어려워도 새 시대에서 살아야 된다.

48. 주님을 따라오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고생하며 끝까지 온 자들아. 예전에 1년 동안 얻었던 것보다 지금 하루 동안 얻는 것이 더 많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명만 전도하면서, 주님이 예비해 주신 삼선교 집이 좋다고 기뻐했다. 그 집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냄새나고 낡은 썩은 집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곳은 감옥보다 10배나 못한 곳이다. 겨울철이 되면 냉방이었고, 때가 돼도 먹을 것이 없었다. 그때 그 같은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니, 현재에 가나안 복지에 오게 된 것이다.

<2012년 12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현재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것을 하면서 미래의 것도 해야 된다.

2. 현재에 살면서 미래의 것만 하면 현재에 쓸 수가 없다.

3. 오늘에 내일 일만 하면 존재를 못 한다. 고로 오늘은 오늘의 것도 하고 내일의 것도 해야 된다.

4. 시골에서 농사지을 때 봄에는 봄에 먹을 것도 뿌리고, 미래인 여름에 먹을 것도 뿌린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

5. 현실 속에서 행하다 보면, 깨닫고 미래를 위해 발전된 것을 하게 된다. 개집을 먼저 지으면서 사람이 살 집을 구상하듯 한다.

6. 1층 짓다가 10층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10층을 지으려면 10층만 지을 수 없다. 먼저 1층을 거쳐야 된다. 고로 10층은 머리에 생각해 놓고, 1층 짓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7. 인류 역사는 점진적 발달이다.

8. 가령 징검다리를 놓지 않고서 한 번에 철근으로 다리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20세기 사람인데 ‘문화’는 21세기 문화가 되는 꼴이 된다. 그러니 핫바지를 입고 21세기에서 사니 안 어울리고 밸런스가 안 맞는다.

9. 어린 자가 좋은 세단 차를 몰고 가기에 쳐다보니, 겨우 놀러 가는 데 그 좋은 세단 차를 써먹고 있었다. 그만큼 큰 자가 좋은 세단 차를 몰아야 우아하고 멋지다고 칭찬한다.

10. ‘인생’도 크고 성장하고 나서 명예를 얻어 누리고 살 때 빛난다. 신앙도 그러하다.

11. 섭리역사가 커지면서 조금씩 사명자의 사명을 내놓았다. 백성도 몇 명 없는데 왕이라고 하면 “동네 골목대장 격이다.” 하기 때문이다.

12. 호랑이가 토끼를 데려다 놓고 “나 왕이다!” 하니, ‘킁킁’ 웃어댔다. “왜 웃느냐?” 하니 “백성이 너무 적어요.” 했다. “너도 왕 밑에서 생색내고 치타같이 어깨 올리고 살려면, 산짐승들 좀 많이 데려와라.” 하니, “거북이는 데려올 자신 있어요!” 했다.

13. 구색을 갖추야 성자 주님도 나타나시고, 그 보낸 자에 대해서도 더 밝히신다. 구색을 갖추었기에 본체에 이어서 분

체에 대해 밝힌 것이다. 밝히지만 말고, 갖추어라!

14. (삽화) “제 사명이 뭐지요?” 하며 묻지만 말고, 먼저 자기 실력껏 자기 그릇을 갖추어라. 그러면 그 그릇대로 사명을 담아 준다.(삽화) 그릇 여러 개 그려 놓고 작은 그릇 안에는 ‘목사’라고 써 넣고, 좀 더 큰 그릇 안에는 ‘큰 목사’라고 써 넣고, 좀 더 큰 그릇 안에는 ‘중심인물’이라고 써 넣고, 더 큰 그릇 안에는 ‘분체’라고 써 넣는다.

15. 질항아리에는 된장과 고추장을 담는 것이 합당하고, 소쿠리에는 나물을 담는 것이 합당하다. 은 쟁반이라야 금 사과가 어울린다. 각자 마음 그릇대로 사명을 담는다.

16. 각자 마음 그릇대로 하늘의 사명자가 나타난다. 마음 그릇에 따라 ‘거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는 사랑의 왕으로 나타나 역사한다.

17. “왜 어느 때는 중심인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선지자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주로 나타납니까? 왜 어느 때는 본체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분체로 나타납니까?” 하지 말고, 자기 마음 그릇이 어떠한지 보아라. 계절에 따라서 ‘단풍’이라고 부르고, ‘낙엽’이라고 부르고, ‘신록’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마음 그릇에 따라 나타난다.

18. 똑같은 하늘도 봄에는 봄 하늘, 여름에는 여름 하늘, 가을에는 가을 하늘, 겨울에는 겨울 하늘이라 부른다. 시대에 보낸 자도 시대에 따라 그에 맞게 나타나고 부른다.

19. 사람들도 자기 기분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한다.

20.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똑같은 사람이 듣고 똑같은 환경에서 들은 말씀인데, 이리저리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 변화하는 대로 기록하고 말한 것이다.

21. 어느 때는 대상이 변했기에 말씀을 달리 했고, 어느 때는 주체가 뜻을 틀었기에 말씀을 달리 했다.

22. 때와 이치를 깨닫고 변화무쌍한 마음들을 깨달아라.

23. 불순종자가 열심히 하면, 그때는 주가 함께하신다.

24. 열심히 하던 자가 마음 변해서 자기 길을 가면, 주도 달리 대하신다.

25. ‘근원’인 ‘마음 세계’를 늘 깨닫고 대하고 살아라.

26. “어떻게 주님이 변해?” 말하지 말아라. 자기가 변하는 것에 따라 대하니, 자기의 변화무쌍함을 한탄하며 고쳐라!

27. 안 고쳐지면 방법을 달리하여라. 기도해서 억제시켜라.

28. 근성 없애는 것이 손을 자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29. 자기 근성은 자기 손해요, 그에 해당되는 자도 손해요, 주도 손해다.

30. 자기 마음이니, 고쳐라. 남의 마음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

31. 고친 자는 잘 달린다.

32. 자기 전화 벨소리와 같다고 해서 자기 전화가 아니다. 소리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라.

33. 설교 소리도 소리는 같되, 사명자가 따로 있다.

<2012년 12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와 같이 먹어야 목에 안 걸린다.
2. 꿀을 못 본다.
3. '꿀을 못 본다'라는 한 가지 잠언 속에 100가지 잠언이 들어 있다.
4. 땅콩 몇 개를 먹으니 꿀을 못 보게 껍데기와 부스러기가 나와서 깨끗한 방을 더럽혔다. 이로 인해 '꿀'에 대한 잠언이 시작됐다. 땅콩을 통한 자연 계시다.
5.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성자 주님의 편이면, 꿀을 못 보고 나타난다.
6.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꿀을 못 본다.
7. 땅콩을 까면 껍데기와 부스러기가 생기듯이, 어떤 일을 하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콩은 안 보고 껍데기와 부스러기만 보고 꿀을 못 본다.
8. 과일도 껍질 꿀을 못 보면 못 먹는다.
9. 이 시대도 기성은 하늘이 보낸 자의 꿀을 못 본다. 알맹이로 인한 껍질이 있는데, 알맹이는 안 보고 꼭 껍질만 보고 꿀을 못 본다.
10. 어떤 사람은 남이 잘되면 밤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경 쓰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려고 악평하면서 혀가 닳도록 씹다가 결국 자기 혀를 씹고 자기 영혼까지 씹어 죽이고 고통 속에서 산다. 남이 잘되면, 그 방법을 따라서 해라. 그러면 자기도 잘된다.
11. '꿀을 못 본다'라는 것은 껍데기 같은 꿀을 못 보고 못 참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12. 알맹이 사명 꿀은 안 보고, 그 사명으로 일어나는 껍데기 꿀을 못 봐 주고, 타작마당의 겨 날리듯 날리면서 입이 부르트트듯 말한다.
13. 남의 약점 꿀을 못 보고 지적하는 자들은 하늘도 그가 행한 대로 약점 꿀을 못 보고 지적하신다.
14. 섭리사에서 형제의 약점 꿀을 못 보는 자들, 곧 관용이 없는 자들아. 마지막으로 고쳐라!
15. 모기, 파리, 귀신, 사탄 꿀을 못 봐 주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16. 형제의 눈의 티를 못 봐 주는 자들아. 먼저 네 눈에 쓰레기통이 들어 있는지 봐라.
17. 하나님과 주가 보실 때, 꿀 못 보는 자가 되지 않게 벗어나라!
18. 부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팀 안에서 서로 꿀을 못 보고 자기 식으로만 하는 자들아. 주께서 각자 행한 대로 저울질하여 행하신다.
19.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라.
20. 형제의 꿀을 못 보고 지적하는 자들은 하늘도 그 꿀을 못 보신다.

21. 꿀 못 보면 이혼이다. 이와 같이 꿀 못 보면 어떤 자는 사망길로 가고, 어떤 자는 탕감 길로 가고, 어떤 자는 회개 길로 가고, 어떤 자는 치료하러 간다.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2. 자기 꿀은 잘 봐 주면서 남의 꿀은 못 봐 준다.

23. 참는 쪽이 꿀을 보는 자다.

24. 참지 못하는 자, 곧 꿀을 못 봐 주는 자는 자기 꿀도 못 봐 주게 된다.

25. 남의 꿀을 못 봐 주면 결국 남을 죽이고, 그 성질로 자기도 죽인다.

26. 남을 살려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린다.

27. 남을 살리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도 살린다.

28. 어떤 사람은 그토록 고생하여 얻고 찾은 생명인데, 이 꿀 저 꿀 안 보고 떠나간다.

29. 달고 쓴 것들을 다 겪으면서 이 꿀 저 꿀 다 보고 살면, 어느 날 안개가 걷혀 청아한 하늘이 보이고 기다리던 소망이 이루어진다.

30. 잘되려면, 이 꿀 저 꿀 다 보기다.

31. 성자 분체는 34년 동안 이 꿀 저 꿀 다 보고 심정 태우면서 왔다. 그래서 오늘날 성자 주님이 좋아하신다.

32. 선생 꿀 못 보고 섭리 집을 떠난 자들이 지금 무슨 꿀을 보고 사는지 아느냐. 사탄 꿀 세계에서 별의별 꿀을 다 보고 겪고 먹으면서 괴로워하며 산다.

33. 문어가 꿀뚜기 꿀 못 보겠다고 바다를 떠나느냐. 떠나는 문어만 모래 위에서, 땅에서 살아야 된다.

34. 어떤 사람은 성자 주님의 꿀도 못 보겠다고 하며 성자 주님도 못 믿겠다고 한다.

35. 꿀 중에는 배신 꿀, 악평 꿀, 억울하게 하는 꿀, 자기 양심을 몽개면서 행하는 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가정·민족·세계·시대를 꼭 심판하신다.

36. 예쁜 꿀도 못 보고 미운 꿀도 못 보고 외면하고 불신하느냐. 예쁜 자가 밋게 변장하고, 미운 자가 예쁘게 변장했다. 네가 꿀을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37. 성자는 때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꿀로 나타나셔서 신후사를 알지 못하게 하신다.

38. 예쁜 꿀도 미운 꿀도 모두 보고 감사하면서 가면, 그로 인해 얻게 된다.

39. 둘 중의 한 가지에는 꿀이 있으니 얻지 않겠느냐.

40. 자기 꿀 보듯, 남의 꿀도 보아라.

<2012년 12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41. 성자 주님은 여러 꼴로 나타나신다.
42. 만물 통해서, 생활 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43. 성자 주님이 쓰고 나타나시는 여건과 사물은 네 마음을 노크하는 벨이다.
44. 성자 주님이 노크하시면, 그 여건과 사물만 보지 말고 노크하고 들어오는 애인을 보아라.
45. 꼴을 보는 자는 참을성이 많은 자요, 근성을 고친 자다.
46. 성자 주님은 만물로 노크하면서 오시는데, 사람들은 만물만 쳐다보며 논다.
47. 성경에 성자 주님은 ‘구름’으로 노크하면서 재림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 구름만 쳐다본다. 정말 그 꼴을 못 보겠다.
48. 노크하고 들어오신 주를 보고 신량을 봐야지, ‘하늘 구름’만 쳐다보느냐. 구름 타고 오신 주를 맞은 자들아. 너희들도 주를 맞았으면 주를 봐야지, ‘청중 구름’만 보느냐. 이 답답한 꼴을 어디까지 보겠느냐. 온전히 주를 맞는 자들과만 잔치할 것이다.
49. 성자 주님이 육신 쓰고 오셨는데, 그 꼴을 못 보고 안 믿느냐. 성자가 하신 일을 육만 보고 안 믿으면, 너만 구원길 못 가고 손해다. 성자가 쓰시는 그 육도 주다.
50. 해를 맞고 해와 같이 살아야 어둠의 꼴 속에서 살지 않는다.
51.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혼인 잔치집에서 신랑 꼴 안 보고, 음식 꼴과 손님 꼴만 보는 신부와 같으니, 신랑 마음 꼴이 어떠하겠느냐.
52. 때가 되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오직 신랑 꼴에 빠진 신부만 데려간다.
53. 음식 꼴, 손님 꼴만 보던 신부는 때가 되어 음식도 안 보이고 손님도 안 보이면 그제야 신랑 꼴을 보려고 신랑을 찾아다닌다. 그때 신랑 꼴을 볼 수 있겠느냐.
54. 허둥지둥하는 신부의 꼴을 봐라. “내가 녀이 나갔나 봐. 음식 꼴만 쳐다보고 손님 꼴만 쳐다보고 있다가, 결국 혼자 있는 꼴이 되었구나.” 하고 탄식한다.
55. 신랑을 맞아 신혼여행을 떠나는 신부들이 창밖으로 신랑을 못 맞은 자들의 꼴을 쳐다보면서 “하마터면 나도 저 꼬락서니 될 뻔했네.” 하며 충격 받고, 옆에 있는 신랑 성자 주님을 끌어안고 감사 감격하니 신랑 되신 성자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정신이 드는구나!”
56. 그리고 또 신랑 되신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꼴 저 꼴 다 보고 참고 견디었기에 신부 차원에 오른 거다. 나를 끌어안고 놓지 마라.” 하신다.
57. 무슨 꼴을 하고 다니든지 가만둬라. 그래야 그 꼴을 제대로 알게 된다.
58. 성자 주님은 성경에 다시 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 꼴 저 꼴 다 말해 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그대로 행하신다.
59. 이 꼴 저 꼴 가만히 두고 봐라. 꼴을 못 보고 못 참고 더 잘해 주려고 돕고 손대지 말아라. 그러다 귀뚜라미 다리 끊어지듯 해가 된다.

60. 다쳐서 상처가 난 곳이 다 나아 가는데, 딱지 앓은 것을 보고 흉하다고 꼴을 못 보고 쥐어뜯으면 오히려 덧나서 치료 기간이 더 늦어진다. 그리고 흉터 생긴다.

61. 꼴을 꼭 봐야 된다. 꼴은 꼭지다. (그림)

62. 꼴을 보다 보면, 반드시 결국 꼴을 보게 된다.

63. 꼴을 보고 참고 살아라. 그러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가서 젖도 먹고 꿀도 먹고 살아간다. (그림)

<2012년 12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계획도 없는데, 자기네끼리 싸워서 서로 원수가 된다.

2. 자기 생각대로 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조화다.” 한다.

3. 자기 생각일 뿐이다.

4.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만물이고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5.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만물도 사람도 크고 빛이 난다.

6. 만물이고 사람이고 인간이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모른다. 오직 깨닫는 자만 안다.

7.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8. 기록하는 것이 지혜다.

9. 기록하는 것이 옆의 비서가 돕는 것보다 더 크다.

10. 기록하는 자는 기억의 천재가 된다.

11. ‘기록의 기회’는 생각났을 때다.

12. 기억났을 때 기록해 났다가 때 맞춰서 행하기다. 이때가 실천의 기회다.

13. 바늘 하나도 여러 가지로 쓰면 신비하듯이, 자기 몸도 여러 가지로 쓰면 신비한 것이다.

1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고로 인간으로서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같이 행할 수 있다.

15. 만물도 인간도 모두 개성의 보화들이다.

16.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려면, 먼저 깨닫게 하신다.

17.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인간을 돕기 위해 개인·민족·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했다고 한다.

18. 치매 환자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모르듯이, 인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나 모를 뿐이다. (안 도와줘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와준 것을 못 깨닫고 몰라서 모르는 것이다.)

19. 인간이 동물을 아무리 도와줘도 동물이 모른다 해도 인간은 동물을 기르는 재미로 산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 그러하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알고 행한다면 ‘구원’이다. 고로 하나님과 주님은 그 영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평생 모르고 살다가 끝나면 ‘육’은 세상에서 끝나고, 그 ‘영’은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없는 악한 세계로 가게 된다.

20. 인간은 참지 못해서 끝까지 꼴을 못 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꼴을 다 보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때가 되면 꼴을 안 보시고 선악 간에 갇아 주신다.

21. 끝까지 꼴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때가 되면 꼴을 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22. 꼴은 십자가다.

23. 성자 주님도 그 분체도 때가 될 때까지 십자가를 저 주다가 정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안 저 준다.

24. 결국은 망하고 끝나는데, 그 시간에 자기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면서 가지, 뭘 그렇게 냅을 팔고 몸을 팔고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구경하느냐.

25. 자기 때에 자기 육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혼도, 영도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구원길을 가라.

<2012년 12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받을 때는 깊은 감명의 잠언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읽어 보면, ‘왜 이 잠언을 썼지?’ 하게 된다. 그때 그 처지에서 잠언을 받고서 때가 지나 처지와 상황이 다른 차원에서 읽어 보기 때문이다. 그때, 그 상황, 그 처지의 계시의 잠언이다.

2. 고로 계시받은 자가 바로바로 뛰어다니면서 전해 줘야 된다.

3. 사람은 너를 찾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자는 너를 찾으신다. 왜 찾았냐고 물어보아라. 하나님과 성자가 너를 찾아도 네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 모른다.

4.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도 모른다. 신의 소리도 안 들리고, 그 모습도 안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을 어떻게 만나겠느냐. 인간이 전능자 신을 찾아라. 그러면 바로 알 수 있다.

5. 신과의 대화는 인간이 먼저 찾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6. 세상은 모두 자기 존재 중심이다.

7.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펴기 바쁘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자기중심의 말뿐이다. 자기 사고와 자기 인식으로 살기 때문이다. 고로 네가 가던 길이나 어서 가라고 자유의지대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 그는 자기중심대로 살다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 인생 열차에서 내렸는데, 그제야 놀라서 간이 떨어졌다.

8. 내가 전능자 하나님과 나의 구원주인 성자와 붙어 사니, 누구든지 내게 붙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와도 일체 되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9. (어떻게 불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것이냐?) 자기 자신과 싸워 불의를 이긴 것이 사탄과 싸워 이긴 것이다.

10. 자기 육성을 죽이고 불의를 이긴 자가 영적 대전쟁에서 이긴 승리자다.

11. 사탄과만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라! 자기 욕성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여 자기와 전쟁한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라! 사탄은 너를 침범하여 너의 욕을 가지고 너를 이기려 하지, 조건 없이 그냥은 못 이긴다.

12. 자기 욕성을 완전히 멸해 버려라! 이러한 자가 영적 대전쟁의 영웅이다.

13. 사탄은 너의 욕성을 가지고 하늘의 마음인 너의 영성과 싸워 이기게 하려 한다. 그래서 너의 욕성이 너의 영성을 이기면, 사탄은 너의 욕성을 통해 너를 침범한다. 매일 그같이 한다. / 고로 자기 욕성을 이긴 자는 사탄을 이긴 자다! / 사탄은 너희 욕이 자기 욕도 아닌데 자기 욕으로 쓰면서, 너희 영성을 꺾고 하늘의 뜻을 꺾고 너희 욕이 하늘의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 말씀의 도끼로 사탄의 골을 쪼개 놓아라! 말씀의 도끼는 너희 모두에게 다 줬는데 안 써 먹어서 빨갱게 녹이 슬었다. 사탄이 녹슨 도끼 보고 안전하다 한다. / 또한 사탄은 너희 욕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안일주의의 삶으로 인도한다. 그같이 너를 인도하는 사탄의 발목을 말씀의 도끼로 찍어 영원히 불구자로 만들어라!

14. 사탄이 너에게 왔는데, 사탄을 두고 잠자느냐. 방에 모기만 들어와서 웅웅거려도 신경 쓰여 잠 못 자는데, 사탄은 그보다 만 배나 더 해를 끼치고 유유히 떠난다. 말씀의 도끼를 던져서 사탄 뒤통수에 쏘아라!

15. 선생은 주님께 배워서 돌의 비밀과 값은 알고,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고 은밀하게 값싸게 돌을 구해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지었다. 이미 15년이 흘렀으니, 이제 모두에게 알려 준 것이다. 돌 하나 보고서 논도 사고 밭도 산 것이다. 논과 밭에서 나온 돌이 논과 밭 값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

16. 이와 같이 '진리의 보물'이 들어 있는 역사를 네 것으로 삼아라!

17. '진리' 하나 가지면 부자가 된다. 주님은 그 진리를 가지고 형통하게 해 주셨다. 선생은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신 '예정론'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틀고 비행하기 시작했다.

18. 그 귀한 시대 말씀을 너희들에게 줬는데도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만큼도 위력을 못 나타내니, 진리를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단들도 거리를 휩쓸고 다니는데, 시대 온전한 진리를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껌속말로 전하니, 복음이 빨리 전파되지 않는 것이다.

19. 시대 재림의 말씀은 2000년이나 기다렸던 말씀이며, 이 말씀은 지구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모르는 말씀이다. 그들은 섭리의 진리를 가져다가 외람되게 전한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전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로 간다.

20. 이단들은 6개월씩 비진리를 가르치면서, 사귀고 친해져서 교리보다 인맥으로 뺏어 나간다. 그러면서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며 안 가르치고 호기심을 주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 놓는다. 마치 시골 시장의 약장사같이 보여 줄 것은 안 보여 주고 약은 다 팔고 가듯 한다. 그들이 교리를 내놓으면 그릇된 것이 탄로 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섭리사는 이 귀한 진리를 거저 주려고 한다. 먼저 사람을 만들고, 인식관을 바로 해 주고, 맨 나중에 진리를 줘야 한다. 쉽게 끓은 물은 쉽게 식는다.

<2012년 12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꿈보다 해몽이다.
2. 존재물보다 설명이다.
3. 내용보다 설명이다.
4. 존재물보다 사연이다.

5. ‘말’이 그리 중요하다. ‘설명’이 그리 중요하다. → $1+1=2$ 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1+1=2$ 라고 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왜 2인지 설명해 주는 것이 말의 위력이다!
6. 숙달하고 집중해야 달인 된다.
7. 저마다 자기가 달인이 됐어도 모른다.
8. 달인도 나름이다. 개성대로 달인이다.
9. 세계적인 달인이냐, 민족적인 달인이냐, 한 지역의 달인이냐가 다르다.
10. ‘순간적’ 달인이 있고, ‘꾸준한’ 달인이 있다.
11. 숙달하여 빨리하면 달인이다.
12.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다 달인이다.
13. 사물이나 사람을 잘 증거하는 달인도 있다.
14. 정신적 달인, 혼적 세계 달인, 영적 세계 달인이 있다.
15. 시간을 주관하는 축지의 달인이 있다.
16. 사탄 마귀를 잡고 주관하는 달인이 있다.
17. 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18. 기도의 달인이 있다.
19. 자기에게도 달인의 잠재 능력이 있는데, 모르고 행치 못하고 있다.
20. 천사와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자도 달인이다.
21. 구상의 달인이 있다.
22. 작품의 달인이 있다.
23. 설교의 달인, 제스처의 달인이 있다.
24. 설명의 달인이 있다.
25. 형상적의 달인이 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달인은 본다.
26. 저마다 달인이 될 만한 것이 있다. 확인해 보아라.
27. 지혜의 달인이 있다.
28. 월명동 약수는 많은 물 중에서 병 고치는 물 달인이다.

29. 설득의 달인이 있다.
30. 감동의 달인이 있다.
31. 능력을 부리는 신 같은 달인이 있다.
32. 묘기의 달인이 있다.
33. 성자 주님과 이야기하는 달인이 있다.
34. 마사지 비법의 달인이 있다.
35. 일 처리 달인이 있다.
36. 로비의 달인이 있다.
37. 악평의 달인이 있다.
38. 혈기의 달인이 있다.
39. 편지 잘 쓰는 달인이 있다.
40. 잠언의 달인이 있다.
41. 제대로 보고를 잘하는 지혜로운 달인이 있다.
42. 건강하게 사는 자들은 건강의 달인이다.
43. 어떤 것을 빨리하되 능숙하게 잘하면 달인이다.
44. 도사들을 달인이라 한다.
45. 외줄 타기 잘하는 자도 달인이다.
46. 관리의 달인도 있다.
47. 전도의 달인도 있다.
48. 그림의 달인이 있다.
49. 사탄은 거짓말의 달인이다.
50. 월명동 관리와 개발의 달인도 있다.
51. 방법론의 달인이 있다.
52. 사물을 잘 보고, 사람을 잘 보는 달인이 있다.

53. 도둑질 잘하는 달인이 있다.
54.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달인이 있다.
55. 손도 안 대고 얼굴도 안 보고 천 리, 만 리 떨어져 있어도 그 행위대로 축복해 주거나 고통을 주어 대가를 받게 해 주는 달인도 있다.
56. 소쩍새는 밤새워 우는 슬픔에 겨운 새 달인이다.
57. 게으름의 달인들이 많다.
58. 일 잘하는 달인이 있다.
59. 자기도 개성대로 달인인데, 모르고 있다.
60. 잘하면 작고 크고 모두 달인이다.
61. 잘하고 빨리하면 달인이고 기록자다.
62. 연속해서 해 봐야 달인이 된다.
63. 달인은 전문가다.
64. 달인은 4차원 세계에 속한 자다.
65. 달인은 시간을 초월해서 한다.

<2012년 12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땀감으로 사용하던 소나무를 캐다가 정원의 분재로 사용하면, 그것이 작품이다.
2. 똑같은 나무인데 한 사람은 그 나무를 베다가 땀감으로 사용했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나무를 분재로 사용했다. / ‘나무’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되기도 한다. / ‘사람’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 똑같은 사람도 인간이 쓸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쓰고, 하나님이 쓸 때는 위대한 존재로 쓰신다.
3. ‘방법’에 따라서 아주 천히 쓰고, 아주 귀히 쓰게 된다.
4. 방법을 잘해라. 방법에 따라서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5. 쓰는 자의 방법에 따라 천하게 되느냐, 귀하게 되느냐가 좌우된다.
6. 귀한 미인도 거지가 쓰면 거지로 만들어 쓴다.
7. 전능자 하나님이 쓰면 전지전능하게 쓰신다.
8. 구세주 성자가 쓰면 성자와 일체 된 자로 쓰신다.
9. 분재 예술가는 소나무를 분재 예술로 쓴다.

10. 목수는 소나무를 베다가 집 짓는 데 쓴다.
11. 돈 버는 자는 소나무를 무조건 팔아서 돈을 모으는 데 쓴다.
12. ‘사람’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 운명이 결정돼 버린다.
13. 개고기 집 사장은 개를 잡아다 모두 보신탕에 쓰면서 돈을 번다. 사냥꾼은 개를 데려다 사냥개로 쓴다. 사람도 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돼 버린다.
14.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도록 너를 전능자에게 맡겨라! 그러면 삼위가 원하시는 방법대로 너를 가장 고귀하게 쓰신다.
15. 시골의 이름 없는 한 여자도 임금이 쓰면 궁녀로 쓴다. 식당 주인이 쓰면 그릇을 닦거나 서빙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자로 쓴다.
16. 자기 인생도 자기가 쓰는 방법대로 결정된다.
17. 돈도 시간도 쓰는 방법대로 결정된다. 돈도, 시간도, 네 인생도 자기 수준과 차원과 방법대로밖에 못 쓰니, 성자에게 맡기고 성자의 차원과 방법으로 쓰면서 살아라. 그러면 즉시 운명이 바뀐다.
18. 자기 지능대로, 자기 방법대로밖에 못 쓴다.
19. 성(性)적인 자는 귀한 여자도 성적으로만 쓴다. ‘인간’이라는 작은 유전자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체가 결정되어 버린다.
20. 똑같은 돌과 바위도 자갈을 만드는 공장 사장에게 걸리면, 모두 깨서 자갈로 만들어 아스팔트를 까는 데 쓰고 집을 짓는 데 쓴다.
21. 돌과 바위가 예술가에게 걸리면, 예술용으로 쓰인다.
22. 사람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 쓰여져 인생이 결정된다.
23. 내게 걸리는 문구는 잠언, 시, 말씀 쓰는 데 쓰여진다.
24. 성자 분체와 일체 되면, 그의 분체로 쓰여진다.
25. 바닷고기도 어부에게 걸리면 생김 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삶기도 하고, 즉시 얼음에 넣어 얼리기도 한다. 바다에서 왕으로 살았던 물고기라도 어부에게 걸리면 즉시 먹거리, 국거리, 철사 구이감이 된다. / 그러나 고기 예술인에게 걸리면, 그는 연못을 파서 바닷물을 채워 놓고 종류별로 멋있게 기른다. / 사람도 누구에게 걸리느냐에 따라서 즉시 운명이 달라진다.
26. 인생, 누가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인생은 절대 구세주 성자가 만들고 써야 된다. 그리고 인생을 사용할 때는, 보이는 성자 분체와 일체 되어 쓰여져야 된다. 인생은 영원한 존재자에게 쓰여져야 진짜 귀히 쓰이는 것이다.
27. 산의 분재 소나무도 나무꾼에게 걸리면 그는 모두 잘라서 뿔감으로 쓴다. 3억짜리 분재 소나무도 뿔감으로 쓰이면, 밥 한 끼의 가치밖에 되지 못한다.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 자기 인생도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 있는 인생도 밥 한 끼의 가치로 쓰이기도 하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로 쓰이기도 한다.

28. 자기 인생이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께 귀히 쓰이도록 간구하고, 자기 자신도 귀히 쓰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사람은 누구나 다 귀하게 태어났다. 자기가 귀히 쓰여지도록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

30. 첫째, 자기가 자기를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둘째, 자기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문제다. 이 방법에 따라서 자기가 천하게 되기도 하고, 귀하게 되기도 한다.

31. 하나님과 성자가 쓰시는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과 성자께 맡겨라.

32. 하루를 살아도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살고, 누구의 정신으로 살고,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삶이 달라진다.

33. 나는 밭 하나를 샀다. 밭의 전 주인은 그 밭을 옥토 밭으로 만드는 것만 목적했다. 그래서 밭에서 돌이 나오면 굴려서 내던지고, 나무가 걸리면 다 베어서 버리거나 베어서 뿔감으로 사용했다. 나는 전 주인이 버린 돌을 가져다 작품으로 쓰고, 못생겼지만 작은 소나무를 가져다 유명한 분재 작품으로 만들었다. / 만물도, 인간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운명'과 '가치'가 결정된다.

34. 선생이 20대 때였다. 전도하러 다니다가 주님이 한 여자를 연결해 주시어 전도했다. 그 여자는 전도되기 직전에, 꿈에 내가 백마를 탄 왕자로 나타나서 자기 집에 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해몽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네가 요한 계시록 19장 11-16절에 해당되는 계시를 보았다.”라고 하며 꿈을 해석해 주었다. 주님이 보여 주신 것이다. <참고> (계 19:11-16)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 꿈에 그 여자를 보니, 홍어만 한 금붕어로 보였다. 그래서 ‘큰 고기구나!’ 하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 외에, 구세주라고 하면서 절대 믿는 자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성경을 풀어 주며 아니라고 하니, 내 말을 듣고 “정말 아닌가? 진리를 들으니 아니다.” 하며 믿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보여 주고 계시해 주신 환상대로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나도 꿈을 꾸었는데, 주께서 너를 홍어만 한 금붕어로 보여 주시며 너를 귀히 쓰라고 하셨다.” 했다. 여자는 “좋네요.” 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꾸만 다른 남자를 이성으로 사랑하며 사귀면서 나를 외면했다. 주님과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데도 짝사랑하게만 했다. 못 하게 해도 계속 그 남자를 못 끊었다. 그 남자 역시, 그 여자가 믿고 있던 사람을 재림주로 믿고 따라가는 자였다. 계속 돌이키지 않으니 기도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홍어만 한 그 금붕어를 잡아다가 도마에 놓고 칼로 비늘을 벗기고 토막 내서 찌개를 끓이는 것을 주께서 보여 주셨다. 이 꿈을 꾸고 ‘틀렸구나. 이것이 이 여자의 운명이구나.’ 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그 남자와 성적으로 사귀며 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내게 꿈에 보여 주신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말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 대해서 보여 주신 꿈은 계시다. 그대로 된다. 내가 내 고향 주위에서 사니, 앞으로 보아라. 앞으로 이 지역에 나를 찾아오는 자들로 인파가 뒤덮인다.” 했다. 그 여자를 내가 귀히 썼다면 홍어만 한 금붕어로 썼겠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쓰니 도마에 오른 물고기 운명이 되었다. ‘이성’이 이 같이 인생을 망친다. 그 계시대로 그 여자는 도마에 올라 찌개 운명이 되었다. 축소 - 확대로 그 여자가 재림주로 믿었던 자도 그같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었다. 인생의 가치와 운명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운명을 좋게 타고나도 잘못 쓰여지면 이러하다. 자기 책임이다.

35. 너를 학자에게 맡기면 학자로 만들고, 너를 강패에게 맡기면 강패로 만든다. 너를 구세주께 맡기면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려 한다. 모두 자기 방법대로 만든다.

36. 모든 만물은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쓰여진다.

37. 여자는 두레박 신세, 두레박 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 욕이 지상에서도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38. 너를 하늘에 맡겨라. 욕도 지상에서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39. 세상에서는 우선 욕신이 잘된 것 같지만, 이는 잠시뿐이다. 하나님과 주께 맡긴 자는 영원히 잘된다.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이다.

<2012년 12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40. 어떤 나무꾼은 바위 위에 난 300년이나 된 분재 소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땀감으로 쓴다. 그 분재 소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본인은 모른다. 알면 1억이 넘게 값이 나가는 나무를 자르지 않고, 가꾼다. 모르면 그만큼 손해다. / 고로 성자에게 배워라. 창조주가 주신 만물에 눈을 떠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도 엄청나다. 하물며 창조주의 최고 걸작품인 '자기 자신'에 눈을 뜨면 어떠하겠느냐. 자기 자신은 수백, 수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귀한 것을 모르니 못 쓴다. / 자기와 모든 생명에 눈을 뜨고,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최고 걸작품으로 기르며 보람을 느껴라! 사용하라! 키워라!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과 그가 보내신 구원자와 일체 되어서 보람 있게 살아라!

41. 선생이 어렸을 때 교회 청년들이 4미터가 되는 통나무를 베다가, 한 목수에게 이 나무로 교회를 지어 달라고 했다. 목수는 나무가 좋으니 잘 지어 준다고 했다. 그런데 그 긴 기둥을 자르고 가정집 짓듯 지어 놓았다. 일을 시키는 자들도 몰랐고, 교회를 짓는 목수도 잘 몰랐다. 모르면, 하기는 하는데 귀한 것을 다 버린다.

42. 자신을 아무에게나 값없이 팔지 말고,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아라. 자기 자신이 역대의 분재 소나무나 수석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인생의 걸작을 만드는 자에게 맡겨야 잘 감정해 준다.

43. '사람'도 바위의 술같이 걸작 인생이 있다. 곧 그리스도 성자바위에 붙어서 큰 자다.

44. '분체'라는 반석 바위에 착 붙어서 큰 자들도 역시 걸작 인생이다.

45. 돌도 자연스럽게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작품이고, 깎아서 만든 것도 조각의 작품이다. 나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도 작품이고, 나무가 어릴 때부터 만들어 기른 것도 작품이다.

46. 나무를 '철사 줄'로 감고 매어 수형을 잡아 기르듯이, 자기 자신도 진리의 말씀으로 꼭 감고 매어 길러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못 하면 전문가에게 맡기고 같이 하여라. 자기가 하면 자기가 재미있고 보람 있다.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47. 자기 인생을 만들면, 만들기 전과는 땅과 하늘 차이다.

48. 똑같은 은이라도 방법을 달리하여 차원 높게 쓰면 금같이 쓰여지고, 차원 낮게 쓰면 철같이 쓰여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49.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에 따라서 쓰여지는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쓰는 자가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된다.

50. 지도자가 쓰면 작아도 지도자로 쓰고, 일반 사람이 쓰면 일반 사람으로 쓴다. 주가 쓰면 왕이 쓰듯 귀히 쓴다. / 실상 세상 왕이 크냐? 모두 왕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성자도, 그 분체도 왕으로 비유할 뿐이다. 세상 왕은 수백, 수천 명이고, 하늘 왕은 한 명이다. 깨달아라! 깨닫고 실천하는 만큼 잘된다.

51. 조련사에게 팔려 간 개는 그날부터 주인과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 개를 식용으로 쓰는 자에게 팔려 간 개는 잡아먹혀 손님들 뱃속에서 뛰어다니는 고기가 되었다. / 사람도 그러하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 운명이 결정된다. 전능자가 써야 된다. 구세주가 써야 된다. 그래야 그 영이 육신 세계에서도 귀히 쓰이고, 그 영이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영화롭게 쓰인다. / 성경에 하나님과 주가 쓰신 자들을 보라. 세상에서도 그 육이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 영이 지금도 영계에서 화려하게 쓰임 받는다. / 세상 영웅 열사의 영들을 누가 쓰고 있겠느냐. 영계를 보아라.

52.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성으로 쓰여지는 자, 생명을 구하는 데 쓰여지는 자, 하나님과 성자의 육으로 쓰여지는 자 등 각종으로 쓰여지면서 산다. / 저마다 귀히 쓰여지도록 기도하여라. 성자가 분체로 쓰는 자와 일체 되고, 분체가 쓰는 자와 일체 되어 쓰여지는 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분체같이 빛이 난다. 왜 사탄이 쓰는 몸이 되느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탄이 영원히 쓴다.

53. 사람도 만물도 이름을 짓기에 따라서 천하게, 혹은 귀하게 쓰여진다. 월명동의 공룡바위는 실상 공룡같이 안 생겼는데, 그 바위에 가 보라고 신비한 동물인 공룡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 보고서 “공룡같이 안 생겼네. 선생님이 공룡을 좋아하셔서 그같이 지었구나.” 했다. 고로 바위가 생긴 대로 ‘보지 마 바위’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니 더 보고 싶어서 더 갔다. 왜 보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며 가서 본다. 그 바위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생은 귀뜸해 준다. / 나사렛 예수님 때,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눅 19:40).” 했다. / 요즘은 시대가 차원이 높아져서 바위들이 제대로 보라고 소리를 지르고, 혹은 은밀한 내용을 아무나 못 깨달도록 껌속말로 말해 준다.

54. 차원 높은 사람은 만물들과 이야기한다. 어떻게 만물과 이야기하겠느냐. 만물을 보고 깨달으면서, 성자 주님의 심정을 알면서 일문일답을 하며 대화한다.

55. 동물끼리도 실상 서로 말을 한다. 영적인 자들이나 동물 연구가는 동물의 마음을 알고 동물과 통하기도 한다.

56. 토끼 새끼도 귀히 쓰는 자에게 가져가면 기뻐하며 잘 기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가져가면 그날부터 입맛 다시고 군침 삼키면서 잡아먹으려고 기른다. 그러나 토끼는 모른다. 알면 십 리나 도망간다.

57. 개라도 영리하여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면, 잡아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그러나 화난다고 주인을 물고 해하면, 식구들까지 물어 죽일까 봐 개장수에게 팔면서, 개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 준다.

58. 어떤 사람은 개와 말이 안 통하니 잘해 주면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한다. 개는 잘해 주면 바로 안다. 사람도 그러하다.

59. 선생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는 도둑은 안 지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개들이나 사랑하고 다녔다. 그리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다. 개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금산 시장에 팔아 버렸다. / 선생은 그 개를 사다가 다시 잘 길렀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개는 결국 인삼 밭에서 도둑을 잘 지키는 도사가 되었다. 집에도 잘 안 오고 인삼 밭을 지키기에 밥도 싸다가 주었다.

<2012년 12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방법’에 따라 세상이 이같이 발달됐다.

2. 원시인들은 원시인 방법으로 산다.

3. 구시대는 새 시대에 비해 원시인들이다.

4. 새 시대에 사는 자들은 영적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구시대에 사는 자들은 육적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다. 고로 성

경도 육적으로 풀고,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도 육적으로 풀고 대했다.

5. 전지전능하신 성삼위도 성부 - 성자 - 성령 세 존재가 하나 되어 행하시는데, 하물며 미약한 인간들이 혼자서 하느냐. 그래 놓고 잘 안 되면 한탄한다. 정말 허탈해서 웃음을 짓게 한다.

6.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존재도 크게 쓰기도 하고, 작게 쓰기도 한다.

7. 적과 싸울 때 똑같이 '바늘'을 가지고 싸우는데, 한 명은 상대를 무섭게 하여 도망치게 하여 이겼다. 지팡이 끝에다가 바늘을 창같이 박아서 상대에게 가니, 상대가 한 번에 놀라서 도망간 것이다.

8. 방법에 따라서 작은 것도 크게 쓰여진다.

9. 하늘이 보낸 자도 증거하는 자들이 지팡이에 바늘 박듯이 박아서 쓰면,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고로 사탄도 악도 물러간다.

10. 개구리 열 마리가 있었는데, 여덟 마리는 뱀에게 잡아먹히고 두 마리만 살아남았다. 겉으로 보면 개구리 열 마리다 똑같고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개구리 두 마리는 뱀이 잡아먹으러 올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펄쩍 펄쩍 뛰었다. 뱀이 그 입과 뛰는 것을 보고 도망간 것이다. 뱀도 뛰어 보니, 자기는 개구리처럼 그같이 뛰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며 도망간 것이다.

11. 바닷고기들도 방법을 달리하여 살아남는다. 상대가 잡아먹지 못하는 물고기나 식물에 붙어서 숨어 살기에 잡아먹히지 않고 산다.

12. 성경도 방법을 달리해서 해석하니 풀렸다.

13. 병도 방법을 달리해야 고쳐진다.

14. 전도도 방법을 달리해야 잘된다.

15. 안 팔리는 물건도 방법을 달리해야 잘 팔린다.

16. 사탄은 자기가 직접 해서는 안 되니, 방법을 달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와를 통해서 행했다. 고로 사탄도 아담도 하와도 그 행위대로 심판받았다.

17. 더 이상적인 방법으로 한 자가 승리한다.

18. 월명동에 옮겨서 죽을 나무도 방법을 달리해서 거의 다 살렸다.

19. 실패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야심작 쌓듯이 방법을 달리하면 이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20. 그 방법으로는 그 차원이다. 방법을 달리하여라.

21. 오래 사는 방법도 있고, 보다 안 늙는 방법도 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늙은 몸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늙은 나이에 젊음을 유지하며 산다. 젊음을 유지하며 사는 자는 방법을 달리하여 관리했기 때문이다.

22. 섭리사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방법' 때문이다.

23. 분재 소나무도 어떤 것은 키가 크고 어떤 것은 키가 작다. 방법을 달리하여 손대서 키웠기 때문이다.

24. 돈이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다 보면 다 문제가 생긴다. 잘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25.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도 방법을 달리하여 안 될 것도 되게 하신다.
26. 영계에 가는 것도 방법이 다르다. 고로 못 갈 자도 가게 되고, 갈 자도 못 가는 것이다.
27. 성자 주님도 방법을 달리해서 대하면 누구든지 다 주와 통한다. 주와 못 통하면서 어떻게 신부라고 하고, 어떻게 휴거된다고 막연히 믿고 있느냐.
28. 축지도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29. '방법'에 의해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한다.
30. 신은 100% 방법을 아신다.
31. 동물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고 좋은 방법으로 사냥도 하고, 강자에게 안 잡아먹히고 산다. 미련한 동물은 자기 먹을 것만 있으면 배 터지게 먹고, 포식자가 쫓아오면 배불러 뛰지 못하며 바로 잡아먹힌다. 동물을 보고 배워라.
32. 어떤 동물은 풀만 뜯어 먹느라고, 야수가 뒷다리를 물 때까지 모른다. / 어떤 동물은 풀을 한 번 뜯어 먹고서 주변을 살핀다. 앞, 옆, 뒤를 다 살핀다. 모두 배워라.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 주면서, 영상이 나올 때 자막을 그대로 넣어서 말해 준다.)
33. 사냥하는 치타는 영양이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고개를 숙일 때 바짝 기어서 영양 가까이 간다. 그러다 영양이 사방을 쳐다볼 때는 가만히 쳐다본다. 영양이 또 풀을 뜯어 먹으려고 고개를 땅으로 숙이면, 다시 바짝 기어 들어간다. 그렇게 거리를 좁히다가 결국 사냥하여 잡아먹는다. 이를 보고 인생을 배워라.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 주면서, 영상이 나올 때 자막을 그대로 넣어서 말해 준다.)
34. 영양이 이것을 알고, 많은 영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때 한두 마리가 근무를 선다. 근무를 서는 영양이 계속 동서남북을 나눠 살피니 치타도 사냥을 못 한다. 사람도 이같이 해야 된다.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 주면서, 영상이 나올 때 자막을 그대로 넣어서 말해 준다.)
35. 뱀이 물려고 입을 벌릴 때, 농약을 넣으니 약만 먹고 달아난다.
36. 뱀이 물려고 쫓아와 입을 짹 벌릴 때 입에 지팡이를 깊이 넣어 꼬리까지 밀어 넣으니, 뱀이 기가 막힌다고 탄복하며 죽었다.
37. 개가 물려고 쫓아와서 뒷다리를 물려고 할 때 발뒤꿈치로 툅 차니, 개가 혀를 내밀고 물려다가 제 이빨로 제 혀를 물어서 혀가 다 끊어져 대롱대롱했다.
38. 개가 물려고 달려들어 개의 꼬리를 잡고 팽이 돌리기를 했더니, 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꼬리 잡는 것인데, 결국 어지러워서 땅에 처박혀 못 물고 돌아갔다.
39. 방법을 달리하니, 똑같이 퇴비하고 수고했는데도 과일이 더 크고 실했다. 좋은 나무를 접붙이니 그러했다. 인생도 그리하여라.

1. 생시에 자기 육이 시간을 빼서 절대 성자 주님과 1:1 시간을 보내야, 자기 혼체도 혼계에서 그리한다.
2. 혼의 세계에서 옆에 따라다니는 자 없이 자기 혼체와 자기가 원하는 자만 만나는 것이 1:1 만남이다.
3. 육계를 쥐고 다스려야 영계도 쥐고 다스린다.
4. 육신의 반응이 혼계다.
5. 육계에서 100% 하기 전에는 영계에서도 100%가 없다.
6. 육계든지, 혼계든지 깊이 들어가야 얻는다. 깊이 파야 물이 나온다.
7. 혼적 영계는 정신의 실체 세계다. (자기 육에 속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혼체가 그대로 활동한다.)
8.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육체를 쓰고 행하는 곳이 <육계 실존 세계>이며,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혼체를 쓰고 행하는 곳이 <영계 실존 세계>다.
9. 영계도 육계의 육신처럼 실존하고 있다.
10. 육체는 육계에서 실존하며 살고 있고, 혼체와 영체는 영계에서 실존하며 살고 있다.
11. 창조자 하나님이 왜 육신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인간의 육신만 존재시키려 함이 아니다. 육신을 통해서 영을 창조하여 육신의 행위를 통해 영체를 온전히 만들면서, 그 영체가 영계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12. 사람들은 ‘육신’은 잘 안다. 그런데 ‘영’은 잘 모른다. 마치 돈을 번 자만 돈을 가지고 있듯이, 영을 위해서 사는 자만 영이 있다는 것을 안다.
13. 농사를 안 지으면 추수할 수 없듯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영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자기 영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자기 영을 영원히 존재시킬 수도 없다.
14. 자기가 사람인데도 자기 영혼의 존재를 모르고 평생 살다가 죽는 자들이 많다.
15.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영에 대해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만 배, 억 배 더 낫다.
16.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모두 자기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17. 영을 위해 먹고 마시며, 영을 위해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영을 위해 전능자를 사랑하며 살기다. 육신이 절대 구세주를 통해서 전능자를 믿고 살아야 육신을 따라서 그 영도 하늘에 속한 영으로 크고 변화된다. 고로 육신이 죽어도 영이 멸망받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지 않은 영은 모두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18. 저마다 구세주를 통해 자기 영을 구원시켜야 한다. 구세주를 통해서 창조주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은 무참하게 사망과 고통의 세계로 간다. 그 수가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그 육의 행위대로 간다.
19. 지상에서 원시인 세계에서 나와 구원받지 못하면, 원시인 환경에서 무참하게 고통받게 된다. 육도 영도 사망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하다.
20. 감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무참하게 자유를 짓밟힌다. 이와 같이 육신이 전능자와 구세주를 믿지 않고 사

량하지 않으면, 그 영이 참혹한 세계에서 무참하게 짓밟히며 영원히 살게 된다.

21. 비유로 말하자. 어떤 재벌이 있었다. 그는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굶주리고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주고, 곡식의 씨앗도 주고, 과일나무도 주었다.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고 가꿔서 돈을 벌어서 거기서 나와 도시에서 살라고 목적을 두고 그같이 해 준 것이다. 여기서 재벌은 구세주 격이다. 창조주 격이다. 가난한 자들은 구원받을 자들 격이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과일나무를 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낙이었다. 결국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며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살면서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에서 재벌의 심정과 목적을 깨닫고, 농사지어 돈을 벌어서 도시로 나온 자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사업해서 재벌이 되었다. 그러나 계속 곡식 농사와 과일 농사만 짓고 그것만 중심하고 산 자들은 그 주관권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땅만 더 사면서 농토만 늘려 갔다. 이에 더 피곤하고 더 고통받고 살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목적을 가지고 삶으로 영을 구원시키면서 육이 세상에서 살 때도 천국의 삶을 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 영은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라 함이다. 육신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 영이 사망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무참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이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산 짓값으로서 자기 무지의 대가를 결국 자기가 받게 된다.

22. 세상에서 육신의 삶에 재미가 들어서 평생 육만 위해 사는 자가 있고, 육신이 살면서 영을 위해 사는 삶을 기뻐하며 영을 구원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있다.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23. 사람은 저마다 육신같이 영이 있다. 그러나 육신에만 눈뜬 자는 육신만을 위해 먹고 마시다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산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대다수다. 영에 눈을 못 뜨고 사는 자는 미련한 자요, 아둔한 자요, 무지한 자요, 정신병자다.

24. 나무에 대해 눈을 못 뜨면, 1억짜리 나무도 베다가 땀감으로 쓴다. 수석에 대해 눈을 못 뜨면, 발을 파다가 3억짜리 돌이 나와도 “우리 발에 못된 돌들이 많다.” 하며 망치를 가져다 깨부수고 “속이 시원하다! 이제 발을 갈아도 안 걸려서 좋다!” 하며 기뻐한다. / 그러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떠서 그 가치를 알게 되면 탄식하고 통곡한다. 나무나 수석에 눈을 떴다면, 그것을 팔아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을 것이다. / 몰라서 미친 짓 하고, 몰라서 아둔한 짓 하고, 몰라서 미련한 짓 하고, 몰라서 바보 짓 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자기 영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자가 자기 영을 사망으로 버리게 된다. 그러니 미친 자요, 무지자요, 아둔한 자요, 미련한 자가 아니냐.

25. 스페인의 어느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다. 바이올린에 눈을 뜬 한 사람이 한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무리 바이올린의 줄이 끊어졌어도 어떻게 그리 귀한 것을 가지고 놓고 있어? 장난감 사 줄 테니, 그것 나 줘.” 했다. 어린이들은 “누가 이사 가면서 쓰레기통에 버렸기에 주웠는데, 아저씨 가져요.” 했다. / 그는 그 바이올린을 갖다가 감정했는데, 알고 보니 세계에 150개밖에 없는 이태리 바이올린으로, 150년 전에 만든 진품이었다. 160억을 받고 팔았다. 그 바이올린을 버린 사람은 미련한 자가 아니냐. 아둔한 자가 아니냐. 정신 나간 자가 아니냐. 무지하여 눈을 못 뜨고 미련하면 그렇다. / 너희 영은 너희 몸에 있다. 그 귀한 영을 바이올린에 비하겠느냐. 수십억으로 계산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영혼이다. 그 영을 위해 살면, 네 육도 잘되고 영도 잘된다. 선생도 선생의 영이 귀하다는 것에 눈을 뜨고, 혼에도 눈을 떠서 잘된 것이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살던 자들과 나를 비교해 보아라. 나와 같이 주님을 믿고 살았던 우리 동네 사람들을 보아라. 그 영들을 보아라. 땅과 하늘 차이다. 정말 마음의 눈,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선생이 우리 마을의 전설의 인물이 아니냐. 신약성경의 예언의 인물이 아니냐. 지구촌 전설의 인물이 아니냐.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자가 알아주는 자가 돼야 한다.

26. 돌, 나무, 물에 눈을 뜨고 성지 땅 하나님의 궁전을 보아라. 눈 못 뜬 자는 버리고 오고, 눈 뜬 자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끌고 온다.

27. 눈을 떴어도 ‘배경’과 ‘여건’이 있어야 갖다 놓고 쓴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 대해 눈을 떠라. 그리고 자기 육과 혼과 영에 대해 눈을 떠라.

29. 선생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에 대해 눈을 떴기에 전능자의 창조물인 돌과 나무에도 눈을 떴다. 고로 수억 짜리 돌과 나무를 발견하고 누가 버린 것을 주워다가 너무 귀해 박물관에 두었다. / 모두 못생겼다고 버린 것들이고, 밭에 걸린다고 밟고 천대하며 밟고 다니던 돌들과 나무들이었다. /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최고 걸작품인 ‘인간’에 대해 눈을 뜨고서 사람들도 천대하고 자신도 천대하던 자들을 데려다 시대 말씀을 주어서 희귀 인생 되게 했다. / 그런데 눈을 못 뜬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미련한 자들이요, 바보들이요, 악한 자들이요, 아둔한 자들이요, 하나님과 그 사역자에게 심판을 받고 사망에 갈 영들이다.

30. 진리에 눈을 떠라. 진리를 실천하는 데 눈을 떠라.

31. 소경이 눈쁜 자 앞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한다. 눈쁜 자가 그 미친 소리를 듣겠느냐.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행위대로 절벽에 가게 놔두니, 결국 절벽에 다다랐을 때는 산이 움직일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라고 했다. 그러다 절벽으로 떨어지니, 바위 위에 떨어진 달걀 인생이 되었다. / 이것을 거울로 삼고 소경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래도 눈쁜 자 앞에서 권세를 부리겠느냐.” 한다.

32. 사람들은 소경들과 귀머거리들과 앓은뱅이들과 각종 불구자들 속에서 살아간다.

33. 씨만 뿌리고 가꿔 놓고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아예 씨를 뿌리지 말아라.

34. 처음에는 자연에 눈을 떴다. 그다음에는 콘크리트에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그다음에는 돌에 눈뜨고, 나무에 눈뜨고, 물에 눈을 떴다. 그다음에는 형상석에 눈뜨고, 수석에 눈뜨고, 분재에 눈을 떴다. 눈쁜 증거물들이 지금 자연성전 안에 다 있다.

35. 사물이나 사람에 눈을 뜨고 행해야 얻게 된다.

36. 전도하여 1인당 30~70명, 100명의 생명을 살려야 생명에 대해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37. 수석에 눈을 뜬 자는 30~50개 정도 쓸 만한 돌 작품을 주워 놔야 수석에 눈을 뜨고 행했다고 볼 수 있다.

38. 바위에 대해 눈을 떠서 바위의 가치를 알았으면, 바위 작품을 몇십 개 갖다 놔야 바위에 눈을 떴다고 할 수 있다.

39. 분재에 대해 눈을 떴다면, 분재 작품을 몇십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40. 나무에 대해 눈을 떴다면, 몇십 주의 아릅드리 소나무를 기르고 있어야 한다.

41. 샘물에 대해 눈을 떴다면, 적어도 7개 이상의 샘을 파 놓고 그 물을 먹어야 된다.

42. 섭리인들 중에서 돌, 바위, 나무, 샘에 대해 눈을 뜬 자들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다. 선생이 인정하는 자들이 많지 않다.

43. 자연성전에 갖다 놓은 것을 볼 때도 육의 눈만 떠서 보지, 영의 눈을 못 떠서 제대로 못 본다.

44. 나무에 대해 눈을 뜨면, 삼천리강산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

45. 눈쁜 자가 말하면, 소경들은 동문서답한다.

46. 눈쁜 자는 땅에 묻혀 있어도 숲에 묻혀 있어도 발견하고 캐낸다. 땅속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땅속에 돌이 묻힌 것을 발견한다. 결국 눈쁜 자들이 발견하여 가지고 간다. 눈쁜 자들은 천 리 길에 있는 것도 본다. / ‘생명’에 대해서도 눈을 뜨지 못하면, 생명이 옆에 있어도 육의 눈으로만 보니 발견하지 못한다. ‘생명’에 대해 눈을 뜨면, 생명

이 멀리 있어도 보인다. / 하늘이 보낸 구원자도 눈을 떠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면, 늘 별것 아니게 보인다. / 눈 뜬 자만 주인이 된다. 눈을 뜨고 행해야 된다.

47. 눈을 뜨면 크게 보이고, 가치 있게 보이고, 모든 사물이 황금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 쪼개는 역사다.

1. 때가 되면 ‘의’도 드러나고 ‘불의’도 드러난다.

2. 혼계에서는 혼이 보고, 육계에서는 육이 행한다.

3. 첫 번째 차원은 체질 개선하기, 두 번째 차원은 행하기, 세 번째 차원은 얻기, 네 번째 차원은 얻은 것을 잘 쓰기다.

4. 성자 주님 앞에 신부로서 사랑의 사명을 못 하면 사랑의 위치가 바뀐다.

5. ‘사랑의 측정’은 두 가지로 한다. 첫째, 육신이 얼마나 그만한 삶을 사느냐를 보고 측정한다. 둘째, 마음과 생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느냐를 보고 측정한다.

6.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행위를 보고 슬퍼하고 후회했다. 이때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후자로 준비되어 있었다. 너희도 생명에게 사랑과 시간과 돈과 정성을 투자했으나, 끝까지 자기 책임을 못 한 자들을 보고 사무엘처럼 슬퍼하고 후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다윗 같은 자가 준비되어 있다.

7. 와스디를 보고 실망하며 분노할 것 없다. 에스더를 찾을 때다. 에스더를 찾으면 오히려 “잘됐다.” 하며 잔치하게 된다.

8. 와스디는 성격상 평소에 왕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낮내는 짓을 잘하는 여자였다. 반면 에스더는 평소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하나님을 대하듯, 뜻있는 자를 대하듯 모심과 섬김을 잘하는 여자였다. / 비교해 보니 와스디는 땅에서 낳은 자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서 낳은 자였다. 고로 중심도, 인물도, 인격도, 모든 것이 와스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났다. / 전자보다 후자가 강하고 이상적이다. / ‘역사’도 신약은 구약과 비교가 안 되고, 성약은 신약과 비교가 안 된다.

9. ‘전자’는 사울과 같고 ‘후자’는 다윗과 같다. ‘전자’는 와스디와 같고 ‘후자’는 에스더와 같다. / 이 시대 신부 역사에서도 ‘사랑과 순종’의 사명을 못 하면, 사울과 와스디 같은 운명의 사람이 된다. 신부 역사에서는 사랑과 순종이다. 사랑과 순종은 붙어 있다.

10. 이 시대는 목숨 걸고 가는 시대다.

11.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 네 번이나 무너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더 좋은 돌로 바꾸면서 쌓았다. 결국 더 멋지게 쌓았다.

12. 월명동 집도 첫 번째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초가집보다 더 좋은 함석집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는 청기와집으로 더 좋게 바뀌었다. 네 번째는 더 좋게 바뀐다.

13. ‘자기 신앙’도 더 좋게 바꾸려고 목적을 두고 행할 때, 희망에 불타게 된다.

14. 인생은 새롭게 더 좋게 바꾸기다.

15. 썩으면 바꾼다.

16. 옛것은 바꾼다.

17. '사랑' 보고 바꾼다.

18. 논두렁의 뜰부기야. 그렇게도 네게 기대하며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못 했으니, 백조로 바꾼다. 백조가 논두렁을 다니니 빛이 난다. 사람들이 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 빠지게 쳐다보며 구경한다.

19. 들 노루야. 너는 세상을 뛰어다녀라. 그렇게도 네게 기대하며 정성을 들였는데 끝까지 못 했으니, 꽃사슴으로 바꾼다. 주인이 없으니 사냥꾼이 너를 사냥하러 쫓아온다.

20. 구시대는 가고 더 좋은 시대가 왔다. 고로 더 좋은 사람이 돼야 한다. 시대가 뒤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문전걸식하게 된다. 시대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21. 길이 개통되지 않아서 교통이 안 되는 자들과 교회와 지역은 개통하여라. 뒤바꿔라. 그래야 새 역사를 펴 나간다. 옛길은 잡초 지역이 되고 만다.

22. 자기 혼자 꿈꾸는 것은 혼자의 희망이다. 기다리던 자가 와서 잔치하고 있건만, 정신 나가고 낮이 나가서 세상에서 만 살아간다.

23. 그렇게도 자기 할 일만 하면서 말을 안 듣더니, 결국 거죽으로 쪼개지는구나.

24.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라.

25. 은반지에서 금반지로 바꾸어라. 금반지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로 바꾸어라. 지금은 그런 시대다.

26. 주님은 부정부패하며 썩을 짓을 하는 자들의 마음과 행위를 보시고 새롭게 뒤바꾸신다.

27. 떨어진 신발과 해진 옷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듯이,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차원을 모두 바꾸어라.

28.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이 빛나는 자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뒤바뀌며 빛이 난다.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29.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주를 대한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새 시대를 따라오고 있다.

30. 돈과 명예와 이성과 자기 좋은 것에 빠져 정신이 나간 자들은 성자도 그 분체도 따르는 자들에게서 쪼개 낸다.

31. 주가 안 쓰면 무슨 빛이 나겠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귀뚜라미도 주가 쓰면 빛이 난다.

32. 야비한 자는 약아빠졌다. 자기가 아쉬울 때만 하늘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들은 구원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인다.

33. '분체'라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34. 무지한 자도 안 된다. 속이는 자도 안 된다. 진실한 사랑에 속한 자가 '분체'라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다.

35. 마음속의 괴로움이 자기의 왕이 되어 자기를 다스린다. 이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은 죄 때문이다.

36.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죄가 자기를 다스리고 불의가 자기를 다스리게 된 것이다.
37. 이 시대는 성자 시대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다.
38. 옛것은 빛을 잃었고, 새것이 다 흡수했다.
39. 어제의 시대는 끝장나고 오늘의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나이 먹어서 못 오고, 길이 없어서 못 오고, 소경이라 못 봐서 못 온다.
40. <어제>는 ‘관’이 되어 메고 나가 끝났고, <오늘>은 ‘꽃가마’가 되어 신부가 꽃가마에 타고 신랑 집 혼인 잔치집으로 희망차게 가고 있다.
41. 구시대의 해가 지니 잠을 자러 들어가고, 새 시대 새 천 년의 해가 뜨니 사랑과 희망을 이루면서 활기차고 찬란하게 활동한다.
42. 새 시대에 등을 돌린 자들의 잠꼬대와 불만 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도 미워하며 입놀림을 해 대더니, 때가 되니 사망의 목자인 마귀들이 몰고 가는구나.
43. 참고 견디어 성자 주님과 함께 산 자들은 부활의 역사를 예비하며 이 시대가 올 것을 기다렸다.
44. 짧은 날에 목숨 다해 주를 위해 산 자들아. 그 행위대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영원하리라!
45. 잘되게 축복해 주니, 그 축복을 받고 제 갈 길을 가는구나. 제 갈 길로 가면, 축복을 모두 빼앗아 알거지가 되어 문전걸석하게 한다.
46. 사망을 내주고 생명으로 온 자들은 이 시대 새 역사로 왔다.
47.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도 악아빠져서 피를 먹고 살더니만, 생명을 내주고 사망으로 가서 살고 있다.
48. 자기 삶대로 쪼개져 간다.
49. 저마다 자기 생각과 행위로 삶의 길이 쪼개져서 가는 것이다.
50. 가다 보면 생각이 깊어져서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하게 되리라.
51. 하늘 길을 가는 자들은 고생되고 힘들어도 목적지가 확실하니 희망에 불타서 가는 것이다.
52. 하늘 길을 가는 자들이 육의 삶의 처지와 꼴들이 보잘것없으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래도 미래의 운명은 확실하다. 그 가치가 저들과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같도다.
53. 나그네가 길을 갈 때 정자 좋고, 물 좋고, 풍경 좋아 감탄이 나와도 해가 기울어 갈 길을 재촉하니, 모두 꿈결같이 생각하고 미련을 끊고, 생사의 목적을 향해 걸어 나와야 된다.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 12월 19일 한국 대통령 선거 전에 바로 전해 줄 잠언

1.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버려라. 버리면 이긴다.

2.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악을 버리는 것이다. 버리면 승리한다.
3. 죄를 이기려면 회개하여 죄를 버려라. 그러면 이긴다.
4. 세상이나 민족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죄악과 부정과 부패 때문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기뻐진다. 하늘나라는 선과 의와 사랑과 화평의 세계이며 빛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5. 국가의 주권자를 알아서 그 혜택 보기를 원하느냐? 전능자를 알아서 그 혜택을 보아라.
6. 하나님은 통솔하는 존재자이시다. 오직 그만 섬기고 의지하여라.
7. 악은 이기려면 악을 버려라. 그러면 이긴다.
8. 아기가 뱀을 이기려면 뱀을 버리면 된다. 이와 같이 사탄을 이기려면 사탄을 버려라. 한 번 사탄은 영원한 사탄이다. 버리면 이긴다.
9. 예전에도 지금도 욕적으로 세상 사랑에 빠져 사는 자가 있기로 그를 구원하려고 그렇게도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지만, 이기기 힘들었다. 결국 버리니 내가 승리했다.
10. 성자 주님은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승리한다.” 하셨다.
11. 자를 것을 빨리 잘라야 매인 끈이 없어서 갈 길을 가게 된다.
12. 하늘도 버렸으니 너도 버려라.
13. 주님이 버린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뜻이 있는 새것을 찾아라. 세상에는 더 좋은 사람들이 시장의 물건같이 즐비하게 있다.
14. 버릴 줄 모르는 자는 새것을 얻지 못한다.
15. 썩고 부패된 구역사의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라! 그래야 그제야 다시 새것을 찾아서 쓰려고, 새것을 찾는다.
16. 쓰레기도 오늘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쓰느라고 계속 못 버린다.
17. 옛것을 버린 자는 새것을 찾아 새것에 취해 살고, 옛것을 못 버린 자는 헛고 부패된 옛것을 쓰는 것에 중독되어 그것을 쓰면서 산다.
18. 자기 마음, 정신, 버릇, 행위, 주장, 교회 등 옛것은 다 버려라!
19. 옛것 때문에 새것을 못 받게 된다.
20. 사람은 새 시대 새것으로 태어났는데, 사고는 선조들과 옛사람들과 옛 사고를 물려받아서 산다.
21. 옛것은 발전이 없다. 힘이 없다. 옛날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22. 다 큰 사람이 어린아이 때의 행실을 하면, 옛것을 못 버린 것이다.
23. 새것을 얻고 써라. 그리고 그 새것이 옛것이 되면 버려라. ‘역사’도 그러하고 ‘시대’도 그러하다.

24. 옛날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일으킨다.
25. 옛것은 옛 기관차가 지나가듯 지나갔다. 이제 새 기관차가 온다. 새 기관차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새 사람만 타게 된다.
26. 옛것은 모두 중고품 세계로 가라!
27. 육계에도 영계에도 옛것은 중고품 세계에 있다.
28. 옛것은 원시인 세계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옛것을 보고 발달했다고 좋아하며 그것을 쓰면서 산다.
29. 옛날 묵은 곡식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한다. 썩는 냄새가 나는데도 맛있다고 먹는다. 그러다가 탈 난다. 늙어서 후각이 죽어 냄새를 못 맡기 때문이다.
30. 시골 산골짜지에서 호롱불을 켜 놓고 살면서 “문전옥답이네!” 하고 큰소리치며 자랑한다. (문전옥답 : 집 가까이에 있는 기름진 땅)
31. 기성의 노인들은 자기들이 치매에 걸렸어도 모른다. 새 시대가 오면, 그 무서운 병이 낫는다.
32. 구시대는 구정물이고, 새 시대는 시냇물이다.
33. 구역사는 구정물이고, 새 역사는 샘물이다.
34. 구시대 사람들은 구멍 속에 들어가서 굴속에서 살고, 새 시대 사람들은 새 아침을 맞아 찬란한 세계에서 산다.
35. 구시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지 불려도 꼬무락꼬무락 가고 있다. 새 시대에 온 자들이 그들의 손을 잡으면 끌려서 같이 가게 된다. 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다.
36. 새 시대 젊은이들이 구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가면, 그들에게 끌려가서 같이 옛 무덤에 묻힌다.
37. 구역사는 그만하고, 새 역사를 하여라.
38. 옛것은 옛날 사람들이나 좋아한다. 새 시대 새 역사다!
39. 구원도 옛 시대 구원은 옛날식 구원이다. 평범한 구원이다.
40. 구시대는 아들, 딸, 형제를 가지고 좋아한다. 새 시대는 사랑하는 애인을 가지고 좋아한다.
41. 자식 자랑하는 자와 애인 자랑하는 자, 누구의 마음이 더 크고 뜨겁겠느냐. 누구의 사랑이 더 크겠느냐.
42.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자기 형제를 자랑하는 자 앞에서 자기 애인 자랑을 못 하면, 애인이 보고서 “내 애인 자격이 안 된다.” 한다.
43. 섭리인들은 자기 신랑 되신 근본자 성자를 자랑하고, 구시대 저 기성인들은 자기 형제 되는 땅의 구원자를 자랑한다.
44. 기성인들은 자기 형제인 땅의 구원자를 보고 전능자라고 하고, 창조자라고 하며 자랑한다. 신앙의 치매다.

45. 신앙의 치매는 뇌의 은혜의 물줄기가 사막의 모래같이 말라서 오는 병이다. 새 역사의 은혜의 비를 맞고 강에 담가야 낫는다.

46. 구시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구시대 이야기다. 나도 그 길을 걸어왔고, 거기서 같이 살다가 왔다. 지금 새 시대에 와서 생각해 보니, 철없는 어린아이들 이야기였다. 그때 구시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컸는데 그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말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노아 시대에 비가 와서 물이 하늘까지 닿아 세상 전체가 물에 잠겼고, 노아가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다 넣었고, 예수는 육체로 재림하고, 재림 때 우리 육신이 홀연히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쳤다. 나는 조금은 믿어 주기는 했지만, 그같이 정신이 이상한 자의 말은 안 믿었다. 그들은 또 아담이 에덴동산 중앙의 과일을 따 먹고 타락되었다고 말했다. 모두 말이 안 되는데, 입이 있으니 그런 말을 했다. 그들은 계속 그와 같은 주장을 하여 지금은 박사가 되었고,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 있다. 신앙의 치매에 걸려서 모두 옛길을 가고 있다. 그들이 내게 미친 이론을 가르쳤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전능자이시며 진리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성자에게 성경을 물었다. 주님은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해도 그 진리를 외쳐 왔다. 그로 인해 뺏속까지 파고드는 아픔과 핍박이 있었지만, 오직 진리를 외쳐 왔다. 결국 때가 되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섭리 나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다.

47. 구역사의 말씀은 구정물 같은 말씀이고 교리이며, 새 역사의 말씀은 샘물 같은 말씀이고 교리이다.

48. 지옥에 빠지면 지옥에 빠지고, 음부에 빠지면 음부에 빠진다. 무슨 말인지 기도하고 깨달아라.

49. 껌데기를 안 벗기고 먹는 과일은 먹어도 껌데기라는 오물이 안 나오듯이, 하늘나라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만 사는 고로 먹어도 배설물이 없다.

50. 사명을 받은 자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의 망상의 세계, 꿈의 세계, 환상의 세계로 생각한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발달된 세계에 사는 사람이 원시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천 리 길을 간다. 너희는 짐승을 잡을 때 가까이 접근하여 창으로 찔러서 잡지만, 우리는 저 산 밑에 있는 짐승도 가까이 가지 않고도 잡는다.” 했다. 그러니 원시인들은 망상과 환상으로만 생각하여 “거짓말이야.” 했다. 또 말했다. “너희는 이런 곳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런 집들은 다 불 질러 태워 버려서 하나도 없어. 이런 곳에서는 짐승도 안 살아.” 했다. 그랬더니 원시인들은 또 “거짓말이야.” 했다. 또 말했다. “우리는 저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에서 내려다보면서 살아.” 했다. 그러니 “더 심한 거짓말이야.” 했다. 발달된 세계의 사람이 발달된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원시인들은 안 믿고 하나의 망상과 꿈과 환상으로 안다. 원시인 세계는 발달된 세계보다 몇백 배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해도 모른다. 이와 같이 지구 세상은 하늘나라보다 10억만 년도 더 뒤떨어져 있다. 그러니 육신 세계에 있는 자들이 영의 세계가 믿어지겠느냐. 천인들이 “우리는 빛으로 150억 년 이상 걸리는 천국에서 20분 만에 왔다.” 하니, 육이 믿겠느냐. “우리는 태양 속에서 있다가 왔다.” 하니 믿겠느냐. 육은 태양은커녕 전깃불만 갖다 대도 죽는다. 천국은 다른 세계다. 다른 세계는 다르다.

51. 세상의 큰 자들아.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52.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겠느냐.

53. 나는 군함을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은 나룻배를 만들었다. 그들은 우리 동네에서 목회했던 자였고, 세상에서 삶을 산 자들이었고, 기성인들이었다.

54. 내가 수백 년을 앞질러 사니, 나보다 2000년이나 뒤떨어진 구시대인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55. 선진국은 후진국보다 100년 앞질러 간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56. 구시대 신앙은 원시인 신앙이다. 새 시대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앞질러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시대 노인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구경하면서 “새가 날아가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데 언제 오지?” 한다.

57. 지금은 종교 심판, 정치 심판의 때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다.

58. ‘심판’을 제대로 알아라. 심판은 선과 악을 쪼개는 것이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무엇이 양이고 무엇이 염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쪼개는 것이 심판이다.)

<2012년 12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영계는 기억력이다.

2. 기억대로 영계의 차원에 이른다.

3. 기도하면 기억이 확실하다.

4. 영계는 정신계를 거쳐야 간다. 고로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혼체와 일체 되어 행한다. 고로 정신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신이 자기 혼체와 결합되어 행해도 기억이 안 난다.

5. 인간이 잘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길이다.

6. 지구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한, 성지땅 월명동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7. 깨닫고 보니, 월명동은 크고도 큰 곳이다.

8. 다른 곳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월명동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9. 월명동은 관광지로 개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한 성전이다.

10. 사막에서 물을 찾아오듯이, 지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월명동을 찾아올 것이다.

11. 성지땅은 타조, 사슴, 기린, 공작, 치타, 호랑이, 표범, 독수리와 같은 지구 세상의 각종 사람들이 오고 가며 하늘의 이상(理想) 동산을 이룰 것이다.

12.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계획하신 곳이다.

13. 장래에는 이 골짜기 전체가 이상세계가 된다.

14. 복음을 전하여라! 온 세계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 골짜기를 찾아온다.

15. 바다를 향해 물이 흘러가듯이, 거룩한 곳을 향해 사람들이 모여든다.

16. 작은 돌에 기대가 어긋나면, 기어이 더 좋은 큰 바위를 갖다 놓고 모두 우러러보며 기뻐하며 좋아하게 한다.

17. 작은 나무가 죽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기어이 더 좋은 큰 나무를 갖다 심어 놓고 모두 그 그늘에서 쉼을 추며 놀게 한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이전 것에 기대가 어긋나면, 기어이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 고로 전의 것은 기억조차 안 나게 하신다. 사람도 전자에게 기대가 어긋나면, 기어이 좋은 후자를 불러와 세우시며 역사하신다. 후자는 전자와 비교가 안 되게 뛰어나다.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룬다.

19. 월명동의 돌 조경에 다복술을 심었는데 죽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그 자리에 거목을 갖다가 심고 보니,

얼마나 좋으냐.

20. 이제는 '거목 역사'다. 이제는 '결작품 역사'다.

21. 미완성된 작은 나무는 물과 퇴비를 주면서 자라게 놔두고, 거목을 심어라.

22. 어린아이를 데리고서는 역사를 못 편다.

23. 어린 생명은 묘목처럼 기르고, 거목 인생들이 모여 이 큰 역사를 이끌고 나가자!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어떤 불가능한 일을 하려면, 다른 일을 하는 시간들은 다 희생시키고 그 한 가지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2. 시간적으로 그 일을 하기에 불가능한데, 다른 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을 쓰면 그 일은 못 하는 것이다.

3. 희생해야 할 수 있다.

4. 안 해야 할 수 있다. (이 잠언 해석하면 안 돼. 각자 잠언을 듣고, 뭘 안 해야 되는지 생각한다. 뭘 안 해야 되는지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 있다. 그것을 깨닫고 안 해야 된다. - 이 부분까지 그대로 읽어 주고, 이 잠언 한 번 더 읽어 주기.)

5. 해야 할 수 있다. (이 잠언 해석하면 안 돼. 각자 잠언을 듣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안다. 설교자들이 아는 척 하고 해석하면 큰일 나. 미친 사람이나 해석한다. - 이 부분까지 그대로 읽어 주고, 이 잠언 한 번 더 읽어 주기.)

6. 그것! 하지 마라. 사탄이 또 온다. 이미 결정됐다.

7. 기성인들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알면서,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친다. 그 아는 것도 다 버리고 이리 와라!

8. 기다리던 자 앞에 놓고 큰소리치며 자기 주장만 한다.

9. 자기 주장이 그물이 되어, 자기가 그 그물에 얽혀서 제 갈 길 간다.

10. 계급 떼고 다니니, 깡통 계급장을 단 자가 통치한다.

11. 큰 자는 계급 떼고 편히 다닌다. 때가 지나니, 누가 알아주는 것도 원치 않는다. 공의로운 심판이다.

12. 무지자들과 소경들과 귀머거리들이 알까 무섭다.

13. 한 일을 다 말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건만, 다 말하지 않는다. 믿고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

14. 다 알고 믿는 것이 좋은데, 자기 신앙이 약해지면 그 아는 것으로 시험에 들고, 그 아는 것이 올무가 되어 자기가 그 올무에 얽혀서 죽는다. 고로 다 말해 주지 않는다.

15. 자기 사명이 확실할수록 드러내지 않고, 자기 사명이 약하고 작을수록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자기 사명을 자꾸 드러낸다.

16. 어떤 좋은 것을 얻을 때 큰 것은 자기만 알고 얻는다. 누구에게 말도 않고 깊이 묻어 두고 자기만 좋아하면서 쓴다.

17. 어느 누가 자기를 알아준다고 해서 그같이 즐거워하며 살겠느냐. 오직 100% 온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알아줘야 그같이 즐거워하며 산다.

18. 교만·무지·무식·외면·거부·불신·악평·의심이 늦 성벽이 되어 시대 사명자를 가린다. 그러나 시대 사명자는 갈 길을 다 갔으니, 마음 편하다.

19. 예수를 보고 눈에 핏줄을 세우고 샷대질을 하던 자들을 성자도 나사렛 예수도 다 용서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제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그리 살았다. / 결국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자기 욕이 행한 그대로의 세계에 갔다. 거기서 알고 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뛰면서 후회한다. / 예수만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를 보낸 근본자 성자께서 예수의 몸을 통해 행하셨음을 몰랐으니, 그것까지 알면 얼마나 더 후회하겠느냐. 그 후회는 영원까지다. / 말할 만큼 다 말했으나, 교만·무지·무식·혈기·불신·악평·의심·미움·고집과 욕하는 살인적인 마음이 자기 영혼을 영원한 흑암으로 데리고 갔다.

20. 어차피 알지 못하고 끝날 인생들이다. 제 갈 길 가게 되라. 나를 알고 나를 기다리는 자들 위해서 조용히 가자!

21. 미련한 동네 이웃들과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몰라줘도 사명자는 그 영광을 아는 자들로부터 다 받고 간다.

22. 미련한 자들이 알아준다고 해도 그들이 얼마나 알아주고 영광을 돌리겠느냐.

23. 그 마을에서 몇 명만 알고 따라왔어도 역시 그 그릇만큼만 영광 돌린다.

24. 사랑하는 자가 알아주니, 만 명 이상의 몫을 한다.

25. 너는 이미 늙어서 내가 나를 알아줘도 너는 나와 같이 일 못 해. 너는 늙어서 영광도 못 돌려. 너 젊은 날, 내 그리도 목이 타고 애가 타도록 말해 줬는데도 외면했지. 그래서 내가 안 도와준다. 성자께서 나를 쓰고 네게 그렇게도 애 타게 말했으니 어찌하겠느냐? 너 병들고 아파 보라. 그리고 생각해 보라.

26. 그가 왕이 된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니 화가 많도다.

27. 부리던 자가 왕이 되고, 다스리던 자가 부림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니 성 밖에 놓고 다스린다.

28. 긴긴 역사에 누구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살이가 어떻게 거북이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루살이는 며칠만 살다가 죽으니 1000년 사는 거북이 앞에 '죽음'으로 굴복한다.

<2012년 12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29. 미련한 자에게는 명예가 합당치 않고, 마음 그릇을 비우지 않은 자에게는 주는 것이 옳지 않다.

30. 그릇대로 담아 놓고 자랑한다.

31. 주인 것을 가져다가 자랑하지 않으려면 주인 것을 가져가지 마라.

32. 지금이 옛 고물 보따리 보이면서 자랑할 때냐.

33. 병 자랑, 고민 자랑, 기다림 자랑, 고목 자랑, 모래 위의 집 자랑, 영원히 쓸 필요 없는 교리 자랑, 깨진 돌 항아리 자랑, 죽은 포도나무 자랑, 죽은 남편 무덤 자랑, 늙은 몸 자랑... 이는 아는 자 앞에 무지를 자랑하는 격이다. 녹이 손

옛 시대야! 지금은 고철이 필요 없다. 그 고철로 옛이나 사 먹고 옛 시대에 들러붙어 살아라. 너희 때가 갔다.

34. 너희 때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려나.

35. 작거나 크거나 제때 알아야 된다.

36. 지구 세상의 단 한 명만 전능하신 성자를 알아줘도 성자는 그 하나로 만족하고 역사를 시작하신다. 육의 세계 분체 역시 마찬가지다.

37. (주 편)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 자기 홀로 독점하면, 그를 보낸 나 성자와도 일체 되지 않는다. 보낸 자와 일체 돼야 나와 일체 된다. 분체 앞에도 마찬가지다.

38. (주 편) 질서의 세계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 문을 통해서 들어와라. 계단과 문을 놔두고, 왜 벽을 뚫고 들어오려 안간힘을 쓰느냐.

39. (주 편) 지금은 아쉬우니 잇몸으로라도 먹으면서 가지만, 이 해가 지나면 잇몸으로 안 먹는다.

40. (주 편) 잇몸으로 먹으니, 어떻게 딱딱한 것을 씹겠느냐. 치아로 깨물면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맛있게 먹건만, 모두 소경이라서 모르는구나.

41. (주 편) 이 시대에 내가 보낸 자는 시대의 치아요, 내가 보내지 않은 자는 잇몸이다.

42. 전에 자기가 모시고 살던 자가 새 시대를 발견하고 믿고 따르며 따르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나다!” 하며 따르지 않는다. 자기가 자기를 두고 잘되게 기도하며 새 시대가 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더니, 새 시대가 오니 거부하며 자기가 자기를 고생길로 몰고 가서 다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간다. / 그 산에다 터널을 뚫고 나와야 새 길로 가는 기회가 보인다. 그러나 그때까지 늙은 몸이나 젊은 몸이나 살아 있을까? / 자기 때는 주기적으로 오지만 20년 후에 올지, 30년 후에 올지, 50년 후에 올지, 그 때는 각각이다. 다시 자기 때가 온다고 해서 그 때에는 하고야 만다는 보장도 없다. / 그때는 자기가 늙어서 정말 힘들다. 백 발을 싸도 한 발을 맞힐까 말까다. 자기 때에는 백발백중이니 얼마나 쉬우냐.

43. 어떤 사람이 옛날이 생각나서 옛날에 자기 마을에 같이 살던 사람을 만나러 이것저것을 사 가지고 산과 들을 거처며칠 걸려 천 리 길을 찾아갔다. / 그 옛사람은 이미 죽고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있던 논도 밭도 없어졌다. 그 대신 호수가 생겼고, 운동장이 생겼고, 별천지가 되었고,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곳이 되어 있었다. / 뉘를 놓고 앉아서 옛집을 상상했다. 분명 예전의 그 산들은 맞는데, 옛집도 없고 논밭도 없고 길도 없으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 이 시대 기성인들이 바로 이 사람과 같다. 이미 새 시대는 왔는데, 옛 시대만 생각하며 이상하다고 한다. 그러니 얼마나 꿈속을 헤매는 자이며, 공허함과 망상과 허무 속에서 사는 자냐. /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에게 묻고 그들이 사연을 말해 주었을 때 그 말을 믿어야 자기 인식관의 잠에서 깨어나 깨닫고 알게 된다. / 지상에서의 인식관은 영계에 가서 보면 아예 다르다.

44. 내가 10대, 20대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그렇게도 원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45. 모두 자기 잘난 척은 하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혼만 났다. 나를 알아주지 않고 혼내던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살고 있다. / 나는 그들이 안 알아줘서 다른 세계로 왔다. 또 할 말을 다 해 주었더니, 그들은 나를 알아주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사연을 다 이야기하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며 산다.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을 내려다보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인지, 산인지, 논밭인지 잘 안 보인다.

46. 내가 그렇게도 말했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나를 좋아하고 알아주셨다. 나는 그 바람에 너무 기뻐, 고생돼도 기쁨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시대 이상세계를 이루었

다.

47. 나를 외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아라.

48. 복을 타고 태어나서 진수성찬을 먹고 살았든지, 복을 타고 태어나지 못해서 수고하며 죽을 먹고 살았든지, 초가집에서 살았든지, 궁궐을 짓고 살았든지, 각자 자기 주관권, 자기 위치, 자기 삶이다.

49. 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야 그가 보낸 자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와 같이 살게 된다.

50. 저마다 제 맛, 제 희망, 제 꿈에 기빠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하겠느냐.

51. 그때 그 시절에나 아깝게 생각하고 귀히 여겼지, 지금은 너무 좋은 물건들이 시장에 많으니, 이 물건들에게 눈이 가고 돈이 간다.

52. 자기 때에는 토끼라도 사슴같이 귀히 보고 쫓지만, 때가 지나면 진짜 사슴들이 나타난다. 그러니 진짜 사슴들이 뛰는 초장으로 눈이 간다. 그러다가 치타와 호랑이와 표범이 나타나면, 그들이 뛰어다니는 푸른 초장에 눈이 간다.

53. 늙은 토끼, 늙은 개가 잔칫집에 얼쩡거리고 다닌다. 항상 제때가 자기 때다.

54. 자기 때에 아깝지, 때 지나면 안 아깝다.

55. 주가 사정할 때 들어라. 사정하지 않을 때는 때가 지난 것이다.

56. 해가 기울었는데, 주인이 아쉬운 소리 하겠느냐.

57. 개야. 개구멍에서 빠져나갈 때 도와라. 그때가 네 기회다. 개구멍에서 빠져나가면, 너는 나를 평생 못 본다.

58. 때 지나면 쉼 띄 된다.

59.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랑하는 자가 알아주는 것이 최고다!

<2012년 12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일을 놓고 성자 주님께 간절히 부탁하고 간구한 것은 주님께서 확실하게 해 주셨고, 부탁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해 주셨다.

2. 주님께 부탁하고 구한 것은 확인해 보니 확실하게 되어 있었고, 주님께 부탁하지 않은 것은 아쉽게 반쯤만 되어 있었다. 그래서 꼭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탁해야 된다.

3.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간절히 부탁하면 그 일을 해 줄 자가 있다. 고로 사전에 부탁하면 해 주고, 부탁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도 그가 생각한 대로만 해 준다. 하나님도 주님도 그러하시다.

4. 꿈에 내 혼체가 본 것이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비좁게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 땅 주인이 길을 넓히는 공사를 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1m를 넓혀 주었다. 원래 나는 2m 정도 넓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땅 주인을 만나서 말했다. “이 지역 전체의 길을 이리저리 넓혀 주어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길도 전보다는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좁습니다.” 했다. 그랬더니 땅 주인이 말하기를 “길을 내기 전에 내게 부탁했으면, 원하는 만큼 길을 내 줬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다. / 하나님과 성자 주님 앞에 우리의 입장을 보여 주신 것이다. 고로 성자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게 구하여라. 내 아버지께 구하여라.” 하신 것이다.

5. 기도를 깊이 해야 자기 구할 것이 생각난다.
6. 기도를 깊이 안 하면 자기가 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
7. 기도를 깊이 못 해서 성자 주와 통하지 않고 대화를 못 하는 것이다.
8. 성자는 높은 차원에 있다. 고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만난다.
9. 밑으로 흐르는 물에는 발을 씻고, 그 위에 흐르는 물에는 몸을 씻고, 가장 위에 흐르는 물은 식수로 사용한다.
10. 육계나 영계나 높은 차원일수록 더 밝고,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고, 더 웅장하다.
11. 성자 주님은 밑물같이 왔다가 일순간 썰물같이 떠나신다.
12. 성자 주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잘해라.
13.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행하시기 전에, 미리 부탁하고 간구하여라.
14. 부탁하면 해 줄 것도 부탁하지 않으면 안 해 준다.
15.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기 전에 미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탁하면, 원하는 대로 잘라 준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이발사 스타일로 머리를 잘라 준다.
16.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좀 길게 자르려 했는데요...” 하면, 이발사는 “미리 부탁하지요.” 한다. / 성자 주님은 “나도 이러하다.” 하셨다.
17. 매일 주님께 원하는 것을 부탁하고 기도하여라. 성자 주님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 주기 원하신다.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보편적으로만 해 주고 가신다.
18. 무엇을 간구할지 모르는 자들아. 깊이 기도해야 구할 것이 생각난다. 부지런히 행동해야 생활 속에서 구할 것이 생 각나는 것이다.
19. ‘공적인 것’은 성자 주님이 해 주시지만, ‘개인적인 것’은 부탁해야 특히 더 좋게 해 주신다.
20. 국가에서도 국가의 공적인 도로는 알아서 내 준다. 그러나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부탁해야 길을 낼 때 원하는 대로 해 준다. / 성자 주님은 “나도 그러하다.” 하셨다.
21. 애인이라도 이야기해야 해 줄 것을 해 준다.
22.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관광을 했다. 다 하고 돌아와서 남자가 여자에게 “만족했어?” 물으니, 여자는 “아까 거기에 갔을 때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에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그냥 오니 아쉬워. 거기 꼭 가 보고 싶었는데...” 했다. 이에 남자는 “아까 진작 이야기하지. 이야기했으면 즉시 그곳에 갔을 텐데...” 했다. 이야기 안 하면,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못 해 준다. / 신랑 되신 성자 주님은 “나도 이러하다.” 하셨다.
23. 성자 주님은 기본적인 것은 해 주신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자기에게 맞게 부탁하고 구해야 해 주신다.
24. 어떤 사람이 말했다. “그것이 자네 것인 줄 몰랐네. 알았으면 내 불도저로 길을 닦을 때, 자네 것도 깨끗이 닦아 줬을 것인데... 몰라서 일부만 했네.” 했다. 그는 너무 아쉬워하며, 이제는 자기 일을 부지런히 그에게 알리기로 했다.

25. 축복을 받고 살아가!

26.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편히 앉아 있는 것같이 좋다.

27.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겨울철 추위에 떨고 있는 자와 같고,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봄날을 맞은 자와 같다. (꼭 축복받고 살아야 된다.)

28.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평지와 같고,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높은 산과 같다.

29. 축복을 못 받고 사는 자는 초가집에 사는 자와 같고, 축복을 받고 사는 자는 빌딩에 사는 자와 같다.

<2012년 12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30. 성자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

31. 지혜를 못 받고 사는 자는 그릇된 길을 가고, 지혜를 받고 사는 자는 옳은 길을 간다.

32. <육적인 지혜>만 있고 하늘의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임시로 육신만 위해 살아간다. 그러니 하늘의 영적 지혜로 볼 때 미련하다. 지혜자를 따라가라!

33. <땅의 지혜를 받은 자>와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 두 사람에게 똑같은 처지의 한 땅을 주었다. <땅의 지혜를 받은 자>는 그 땅에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친구들을 모아 즐겼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받고 전하고, 그로 인해 하늘의 사람들이 몰려와 그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하늘의 길을 갔다.

34. <땅의 지혜를 받은 자>는 땅만 파고 들어가서 음부와 개통하고 살게 된다. <하늘의 지혜를 받은 자>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성자 주를 만나고 천국과 개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35. 인간이 살아갈 때, 매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36. 만사의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37. 지혜롭게 한 일과 미련하게 한 일의 차이는 눈에 띄게 드러나고, 그 기쁨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서 드러난다.

38. 성자 주님과 같이 해야 지혜로운 것이다.

39. 우매자는 어둠같이 드러나고, 지혜자는 빛같이 드러난다.

40. 주가 눈에 보이게 땅에 와 있어도 자기 생각, 무지, 우매함으로 대한다.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니 온갖 고통이요, 아쉬움이요, 원시인의 삶이다.

41. 지혜자는 우매자와 무지자의 행함을 보고 답답해서 등을 돌리고 아예 쳐다보지를 않는다.

42. 악하게 행함도 무지요, 게으름도 무지요, 자기중심으로 행함도 무지요,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도 무지요, 세상 사랑에 빠져 사는 것도 무지다. ‘무지’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

43. ‘무지’는 사막과 같고, 가시와 영경귀를 희망으로 뿌리는 것과 같다.

44. ‘무지’와 ‘우매’는 한 방향, 한 길로 통한다. 그 종착역은 동일하게 ‘음부 역’이고, ‘무저갱 역’이다.

45. 지혜자가 무지자들과 우매자들이 살다가 떠난 황막한 곳을 개발하여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늘 궁을 짓고 남녀노소 모두 구름같이 몰려들게 했다.
46. 지혜자는 영영(永永)이고, 무지자와 우매자는 지나가는 행인과 같이 순간이다.
47. 무지자가 “나는 지혜롭다.” 하며 참새가 지저귀듯 떠들지만, 지혜자는 무지자의 그 지혜를 참새로 본다.
48. 전능자 떠난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무지다.
49. 지혜자가 가는 길을 봐야, 그제야 무지자가 대낮에 등불을 잡고 다니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한다.
50. 무지자가 짐승보다 나음은... 창조자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51. 주의 지혜는 바다같이 깊고, 하늘같이 높고, 어둠 속의 태양같이 밝고 뛰어나도다!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기도’는 얻는 것의 비밀이다.
2. 공부를 해야 답을 얻듯이, 기도를 해야 얻는다.
3. ‘기도를 해야 얻는다.’라는 말은 ‘100리를 가야 거기 있는 물을 얻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4. 주님은 80~90% 행한 것을 보시지, 10~20% 행한 것은 안 보신다. 10~20% 행한 것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70~80% 정도는 행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다. 작은 의로는 안 된다. 조금 행해서는 효과가 없다. 고로 안 보신다.
5. 가령, 어떤 사람이 시험을 봤다 하자. 100문제 중에 20~30개만 답을 썼으면 보나 마나 불합격이다. 70~80개는 답을 써야 하고, 그것도 정답인 것만 본다. 이와 같이 작은 의는 자기를 구원시키지 못하니, 주님도 기대를 안 하신다.
6. 주님은 차원 낮은 세계는 안 보신다.
7. ‘기도’도 진실하고 합당한 것만 하늘 앞에 상달되고, 건성이고 차원이 낮은 것은 사라진다.
8. 차원이 낮은 영은 유산되어 하급 영계인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사라진다.
9.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면 무(無)로 사라지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못 만나면, 인간의 영은 무(無)인 흑암으로 사라진다.
10.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를 만나야 된다. 성자가 보낸 육을 만나야 된다. 그를 만난 자가 마치 난자가 정자를 만나 생명이 탄생되듯, 영의 생명이 탄생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난자와 같다. 성자와 그 육이 되는 자는 정자와 같다. 고로 인간은 성자와 그 보낸 자를 만나 일체 돼야 생명의 영을 얻게 된다.
11. 병들지 않은 온전한 유전자와 결합돼야 생명을 탄생시킨다. 고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12. 영과 육 모두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기다! 깨끗하게 해 놓고서 살아가다가 또 병들면, 또 사망으로 사라진다.
13. 영적으로 혼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말아야 된다.

14. 합당한 것도 간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15. 하나님의 정한 법을 지켜야 주신다. '법'은 차의 노선과 같다. 그 길로 가면서 구해야 된다.
16. 조금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한 것이 유산된다. 20~30%만 간구해서는 기도한 것이 상달되지 않고 사라진다.
17. 80~90%는 간구해야 주신다.
18. 기도는 일이다. 일하는 만큼 일이 잘된다. 기도하는 만큼 얻는다.
19. 세상에 말로 되는 일이 많듯이, '기도'라는 말로 되는 일이 많다.
20. 설교도 '말'로 한다. 말로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21. 교육도 '말'로 한다. 말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간다.
22. 하나님께도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행하신다.
23. '말'로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24. 악한 자는 악한 유혹의 말로 영혼을 멸한다.
25. 기도는 '말'이다. '말'로 운명을 좌우시킨다.
26. 인간은 인간을 볼 때도 제대로 못 보고, 하나님을 볼 때도 제대로 못 본다.
27. 절대자 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아주 다르다.
28.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몇 달씩 퇴비하고 가꾸어도 금방 꽃이 피지 않는다. 때가 돼야 꽃이 핀다.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리는데, 금방 꽃이 지지 않는다. 때가 돼야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린다. 그러나 처음에는 콩만 하게 열린다. 계속 쳐다 봐도 열매가 크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한 달, 두 달이 가야 열매가 다 크다. 1년 중에 열매를 딱 한 번 따게 된다. / 이와 같이 기도도 조금하게 하지 말고, 농사짓듯 하여라. 농사를 지어 본 농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때 전에 열매를 구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아라.
29. 때와 내용에 따라 급한 것은 급하게 주신다. 때를 따라 주신다.
30. 기도해도 눈물겹게 기다려야 된다.
31. 기도했으나 안 준다고 하나님과 성자를 오해하지 말고 간구하여라.
32. 기도는 마치 어떤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하루 일한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만큼 완성된다. 기도도 그러하다.
33.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얻느니, 자기가 일해서 얻겠다고 한다. 일해서 얻을 것은 일해서 얻고, 기도해서 얻을 것은 기도해서 얻어라. 이것이 지혜다!
34.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일해서 얻고, 재벌도 되고, 주권자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 안의 일인가.

하나님 뜻 밖의 일인가 보아라.

35. 기도를 하든지, 자기가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성자 주님과 함께해서 얻으면, 그것이 육도 영도 이상세계다.

<2012년 12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36. 잠언으로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썼으니, 읽기만 하지 말고 이해하고 깨달아라.

37. 기도해서 받았으니, 기도해서 깨달아라.

38. 짐승이 사람을 깨닫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기는 쉽다.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야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39. 인간이 깨달으려고 간구해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으로 깨닫는다.

40.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41.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을 조금만 말해 준다면, 인간은 큰 것도 이해를 잘할 것이다.

42.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 100명을 1명씩 일일이 다 만나면 시간이 다 가고 번거롭다. 고로 분단을 나눠서 분단장을 세우고, 반장을 세운다. 분단장은 반장에게 보고하고, 반장은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생님에게 보고한다. 질서의 세계다. 천국도 그러하다.

43. 수천억의 천사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44. 하나님은 중심인물, 선지자, 사사, 메시아를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들과 내통하시며 합당한 대로 역사하신다.

45. 만물도 차원적으로 질서 있게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도 차원대로 존재하도록 질서를 정하셨다.

46. 구름도 깨끗한 구름과 오염된 구름이 차원적으로 높이가 정해져 따로 존재한다.

47. 물도 더러운 물일수록 밑의 하수도에서 존재한다. 깨끗한 물은 높이 상수도에 있고, 사람들 옆에 있다.

48. 하나님 앞에도 모든 영들이 깨끗한 대로 차원대로 존재한다. 깨끗한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존재하고, 더럽고 악한 영일수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 / 사람이 돈을 관리해도 높은 단위의 화폐일수록 가까이 품어 간수하고, 낮은 단위의 화폐는 멀리 두고 관리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고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살아라!

49. '기름'도 최고급 휘발유, 등유, 경유, 아스팔트를 까는 용도의 기름 등 차원대로 따로 놓고 쓴다.

50. 천국도 수만 층의 차원이다.

51. 신부 차원이 천국에서 제일 높다.

52. 지금 이 시대는 신부의 말씀으로 인간의 육과 영을 신부로 만드는 시대다.

53. 신부가 신부를 만든다.

54. 천국급 영이 천국급 영을 만든다. 낙원급 영은 천국급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천국급 영을 못 만든다.

55. 구약인은 신약 말씀이 없어서 신약 자녀권의 신앙인을 못 만든다. / 신약인은 성약 재림 말씀이 없어서 성약 신부권의 신앙인을 못 만든다. / '말씀'으로 만든다. 그 시대 주인공이 성자에게 받은 말씀으로 만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정신과 혼을 가지고 행함으로 만든다. 성약권 구원의 근본자는 전능하신 성자다.

56. '물'로 목욕하고 빨래하듯이, '말씀'으로 신부를 만든다.

57. 이 시대에는 신부가 되는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다.

58. 그 시대 최고 근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재림, 휴거 때는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이 제일 크다. 근본은 성자요, 그의 본체다.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 / 고로 강사들은 전도집회 때나, 교회의 각종 집회 때나 10~20일씩 기도하고, 원고를 제대로 써서 강의하여라. 이것이 앞으로의 법이다. /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 자기 간증으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 / 듣는 자들도 분별하여라. 성자와 선생의 이름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 간증에서 끝나는지 분별하여라.

59. 받을 가는 데서 논 이야기를 하면 합당하지 않다.

60. 산에서 나무를 손질하는데, 과일나무 이야기나 해 주면 도움이 안 된다.

61.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합당하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다.

62. 기도도, 관리도, 일도 합당하게 하여라.

63. 기도할 때도, 성자와 대화할 때도 합당한 것에만 응답하신다.

64. 음식집에 가서도 자기가 찾는 합당한 음식이 없으면 그냥 나온다. 행여 주인이 맛있는 것을 해 준다고 해도 안 먹는다. 이미 먹어 본 음식이기 때문이다.

65. 하나님은 합당한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66. 비유컨대, 어떤 큰 집에 누가 소와 쟁기를 가지고 와서 받을 갈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다. 그런데 누가 그 집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 하니, 그 사람은 반갑게 맞았다. 합당하기 때문이다.

67.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옷과 신발을 사 줬는데도 아이는 기뻐하지 않았다. 장난감을 사 주니, 그것을 가지고 놀며 기뻐했다. 자기가 원하던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68. 시대에 합당한 말이다. 시대에 합당한 말을 전하여라.

<2012년 12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마음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다.

2. 사람은 몸이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다.

3. 성자 주님도 마음 있는 곳에 그 마음이 가 계신다.

4. 성자의 마음이 가서 대화하시고 할 일을 하신다.

5. 사람은 육이 가야 어떤 일을 손으로 만지면서 할 일을 하지만, 마음만 가도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다.

6. ‘마음의 실상’은 혼체다. 자기 육체가 못 가도 자기 마음이 간 곳에 자기 혼체가 가서 만지고, 느끼고, 보고, 말하고, 할 일을 한다.
7. 자기 마음이 가서 자기 혼체로 행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은 그같이 해도 육체가 가서 행하듯, 실제로 표가 나게 행할 수 있다.
8. 영적 세계는 육적 세계와 다르다.
9. 가령,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자. 몸이 못 가는 상황인데, 사랑하는 자가 아프다 하자. 이것을 알았을 때 몸은 못 가도 자기 마음이 가서 이야기하면, 자기 혼체가 가서 사랑하는 자를 위로하고 치료한다. 그러면 육신이 가서 하듯 실제로 좋아진다. 상대가 이를 깨달으면 알게 된다. 상대가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치료는 된다.
10. 자기 육신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자기 육과 같은 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는 자기 혼체다. 그 혼체는 ‘자기 마음의 실상체’다. 이는 곧 자기 마음이 간 대로 자기 혼체가 행한다는 말이다. / 혼체는 육체와 같은 영체다. 영체는 아니다. / 그 혼체가 물에 빠진 자를 건져 내 주어 살리기도 한다. / 혼체가 가서 행해도 실제로 육계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도 한다. / 육이 직접 못 가도 자기 마음을 보내어 혼체로 일을 하기도 한다. 깊이 기도하면 혼체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 더 확실히 도우시는 성자 주님과 함께하고, 자기와 늘 함께하는 혼체와 함께하면 더 잘된다.
11.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애원하면, 성자 주님의 마음과 영이 함께해 주시고, 선생의 혼체와 영이 함께하여, 자기 육체가 직접 못 가는 곳까지 가서 돕고 이끌어 낸다.
12. 어느 때는 자기 육도 가고, 자기 마음도 가고, 자기 혼체도 가고, 성자 주님도 가서 함께하신다.
13. 자기 육이 못 가도 자기 마음이 진정 원하면, 자기 혼체가 가서 나름대로 할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아라!
14. 육신이 못 가니, 깊이 간구하여 주의 마음을 보내서 행하고, 내 혼체를 보내서 행한다.
15. 자기 스스로 못 하는 일은 간구하면 성자 주님이 함께하신다. 천사도 영체로서 치료도 하고, 돕기도 하고, 각종 일을 한다.
16.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종 일을 하듯이, 영계에서도 혼체와 영체들이 그때그때마다 각종 일을 한다.
17. 성자 주님의 영, 곧 성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통하면 성자와 연결된 것이다.
18. 성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그 영체가 하늘나라에 계셔도 마치 전화하면 통하듯 통하고 있는 것이다.
19. 실제 성자의 몸체인 영체가 오기도 하고, 그 마음이 오기도 한다. 그 영체가 직접 오나, 그 마음이 오나, 오는 것은 똑같이 귀하다.
20. 가령, 사랑하는 자가 있다 하자. 몸이 못 오니 전화하여 “지금은 몸이 못 가. 마음은 가 있어. 생각은 가 있어. 사랑해.” 했다 하자. 그러면 그 육신도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육신은 직접 안 했어도 한 것이다. 마음과 같이 실행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성자의 영체가 하늘나라에 있어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사랑한다.” 하면, 그 영체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다.
21. 사람끼리도 먼 곳에 있어 몸은 못 만나지만, 사랑의 마음을 보내며 “진정 사랑해.” 하면, 육도 진정 사랑한 것이다.
22. 성경에 주님은 “마음으로 한 것도 육으로 한 것이다.” 하셨다.

23.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행하여도, 육신이 못 했어도 그 마음과 혼체는 한 것이다.

24. 글을 써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혼이 나가 있어서 자기가 무엇을 쓰는지 기억을 못 해서 제대로 못 쓴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혼체가 집중할수록 글이 잘 써진다.

25. 기도도 집중해야 잘되고 더 높은 차원에 속하여 더 깊이 기도하게 된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보내고 집중하여 혼적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26. 내 마음과 혼체가 월명동에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를 깨닫고 한참 있다가 왔다. 와 보니, 육신이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해 놓았다. 글씨 한 자를 못 써 놓고, 육신은 숨만 쉬고 앉아 있었다. 마음이 나가고 혼이 나가 있으니, 그 순간 육신은 무의식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육 자체로 무엇을 하겠느냐. 전기가 나가면 기계 자체로 무엇을 하겠느냐. 육신이 잠들면 아무것도 못 하듯이, 마음과 생각과 혼체가 육신에게서 나가서 다른 데 가면, 육은 아무것도 못 한다.

27. 저마다 순간 낮이 나갔을 때, 육신은 멍하니 가만히 있지 않느냐. 마음·정신·생각이 주인이다. 혼이 주인이다. 영이 주인이다. 고로 정신 차리고 혼적으로 영적으로 살라는 것이다.

28. 육의 일을 할 때도 육체는 마음과 혼체와 일체 되어서 하여라.

29. 육신이 잠잘 때는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의 실상체인 혼체가 영계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사람들과 때마다 그에 처한 말을 하고, 할 일을 하고 다닌다.

30. 자기 마음이 간절히 원하면, 자기 혼체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기도 한다. 생시에 가기도 하고, 자기 육이 잠잘 때 혼계에서 가기도 한다.

31.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절대 통치하시되, 어떤 것은 인간의 선악 간의 행위에 따라 통치하시고, 어떤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에 따라서 받게 하시는 등 통치하는 방법과 종류가 수천만 가지로 다양하다.

32. 늘 기도함으로 성자 주님과 대화하고 통해라. 매일 통해라. 신부라면 주님과 매일 통해야 된다.

33. 성자 주님을 눈으로도 못 보고, 혼체로도 못 보나, 주님을 간절히 믿고 사랑하고 행하면 주님과 통한다. 고로 기도하고 행하여라. 그러면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34. 성자는 영이니 통하기 힘들면 그 분체와 통해라. 분체는 육이니 볼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대화하라고 세상의 육신을 분체로 보낸 것이다.

35. 자기 영이 존재하고 있지만 보기 어렵듯이, 성자 주님도 너를 사랑해 주지만 상징적으로라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그 육신으로 쓸 자를 보내 주시고, 그를 통해 쉽게 말로 하게 하신 것이다.

36. 자기 영을 보기는 어려워도 자기 육은 쉽게 볼 수 있듯이, 성자의 영체는 볼 수 없으나 그가 자신의 몸으로 쓰시는 분체는 쉽게 볼 수 있고 통할 수 있으니, 그를 보고 그와 통하여 성자와도 통하자.

37. 자기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혼체가 가게 되고, 육계에서 자기 육체까지 가게 된다.

<2012년 12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잠자는 시간은 인간이 가장 편하게 쉬는 시간이다.

2. 많이 쉬면 일의 기능이 약해진다.

3. 영계에서 혼체만 가지고서는 못 산다. 혼체는 육체에 속한 약한 존재다. 고로 혼계에서만 산다.
4. 혼체만 가지고서는 완전한 영체가 될 수 없다. 영체와 결합돼야 혼체가 온전하다.
5. 혼체는 영체와 육체의 매개체다. 완전하지 못하다.
6. 남자와 여자가 있다면, 혼체는 여자와 같다. 여자가 남자와 일체 되어 한 몸 되어 행할 때 완전하고 힘이 있듯이, 혼체가 영체와 일체 돼야 완성체가 된다.
7. 혼체와 영체가 일체 돼야 완성체다. 그러나 이같이 해도 인간 스스로는 약하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상대체가 되어 일체 돼야 완성체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 난자와 정자가 일체 되어 한 생명을 이루듯이, 일체 된 혼체와 영체가 또다시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돼야 완전한 영이 된다.
8.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약하다.
9. 하나님과 성자가 세상에 보낸 구원자와만 일체 돼도 안 된다. 땅의 구원자도 인간이다. 전능하신 구세주 성자와 일체 돼야 절대적으로 완성된 영이 된다.
10. 땅의 육신들은 모두 난자와 같다. 난자 스스로는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듯이, 인간 스스로는 영의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한다. 정자가 필요하다. 하늘의 성자는 정자와 같다. 고로 인간은 성자와 일체 돼야 비로소 '산 영'이 된다.
11. 땅의 구원자는 성자와 인간을 이어 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12. 전능하신 성자는 절대 신으로서 영체다. 그가 보낸 땅의 구원자는 혼체 역할을 한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육체 역할이다. 영과 혼과 육이 일체 되어 완전한 영을 만들어야 된다.
13.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와만 일체 되면 육체와 혼체만 일체 되니, 약하다. 구시대를 보아라. 우리가 기성에 있을 때 어땠느냐. 혼체 입장의 구원자와만 일체 되어 살았다. 그러니 약했다. 그러니 믿다가 만 자들이 너무 많았다. 삼위일체의 성자를 알고, 그와 절대 일체 돼야 한다.
14. 땅의 구원자는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서 절대자, 유일신, 창조주가 아니다. 사명이 구원자다. 그와만 일체 되면 안 된다. 먼저 그와 일체 되고, 그다음에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돼야 한다. 그러면 완벽하다.
15.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다. 삼위일체는 항상 일체 되어 행하신다. 그래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각각 부르면 맛이 다르다. 역사하심이 다르다. 주시는 것도 다르다. 삼위일체는 일체 되어 행하시지만, 각 위로 존재하신다.
16. 하나님과 성령님은 성자에게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맡기시고 그 위에 역사하신다. 성자는 지상에서 준비된 한 사람의 육신을 택하여 자기 육으로 쓰시며 구원역사를 펴신다. 성자의 육으로 쓰이는 자는 지상의 중심자요, 땅의 구원자요, 성자의 분체다.
17.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땅에 보낸 구원자는 한 사람이다. 그가 성자의 육으로 쓰여도 그 자체의 힘으로는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성자가 오셔서 그의 몸을 쓰고 그와 같이 구원하신다. 땅의 구원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성자의 몸이다. 구원받는 자들은 한 몸의 각 지체와 같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인간이 삼위를 멀리 대하고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며 마치 우상 섬기듯 섬기기를 원치 않으신다. 바짝 와서 대화하고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을 원하신다. 인생들 모두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하며 애인 삼고 신부가 되어 살기를 원하신다. 지금이 그와 같이 살라고 허락하신 '성약 신부 시대'다.

19. 모르면, 평생 모르는 대로 살다 가게 된다.
20.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다.
21. 사랑하는 애인이 산길을 오르는데, 초행길이다. 자기보다 300m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간 곳을 확실하게 표시해 놓고, 사랑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길을 따라오게 한다. / 이와 같이 땅의 구원자는 성자 주님이 가신 길을 '말씀'으로 정확히 표시해 놓고 모두 따라오게 한다.
22. '말씀'을 읽어 보고, 생각하고, 확실히 알고 와라!
23. '말씀'은 성자가 가시는 길이다.
24. 주소를 보고 찾아오고,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하듯, 말씀을 보고서 따라와라. 말씀과 믿음과 심정과 실천과 사랑이다!
25. 앞의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서 따라오지 않으면 멀어진다.
26. 하나님이 이상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모두 곁길로 간다.
27.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인간들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고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영원히 살 자기 영을 만들지 못하여, 그저 육신이 살 동안만 살고 끝나는 운명이 되었다.
28. 우리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내신 구원자와 일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우리 영이 하늘에 속한 영으로 변화된다. 고로 육이 죽으면, 그 영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29. 육의 삶과 영의 삶은 다르다. 육은 육의 세상에서만 살고, 영은 영의 세상에서만 살게 창조되었다.
30. 같은 사람이지만 농사짓는 사람의 삶과 장사하는 사람의 삶이 다르다. 육과 영은 본질상 다르다.
31. 같은 사람이지만 여자의 삶과 남자의 삶이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세상을 느끼는 것도 다르다. / 이와 같이 육과 영은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육'은 인생 100년도 못 되어서 죽고, 산다 해도 병들고, 쇠하고, 기억이 감퇴되고, 세포가 죽어서 제 기능을 못 한다. 그러나 '영'은 죽지 않는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영원히 존재한다.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받으며 존재하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며 존재한다.
32. '육'은 물체다. '영'은 영체로서 물체가 아니다. 물체는 썩어 없어진다. 영체는 영원하다.
33. '육'은 나무와 같다면, '영'은 바위산과 같다.
34. 영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된다.
35. 육과 영을 놓고 보면, '육'은 구름 같고 '영'은 태양 같다. 구름은 순간 없어진다. 그러나 태양은 안 없어진다.
36. 고로 육이 이 세상에서 존재할 때 영을 위해 살아라. 저마다 자기 육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내신 구원자와 일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 영이 하늘에 속한 영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
37.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을 위해서 살다가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어 영을 가지고 천국에 오라고 인간

을 창조하셨다.

38. 어떤 젊은 황태자가 시골에 갔다가 소녀들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이 돈으로 옷도 사고, 배울 것을 배우고, 잘 성장하고, 내게 오는 여비로 사용하여라.” 했다. / 그 돈을 황태자가 말한 대로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쓴 자들은 자기로 끝나고 시골에서 살다가 끝났다. / 그 돈으로 배우고, 자기를 키우고 만든 자만 황태자의 상대가 되는 자격이 되어 결국 궁으로 찾아가서 살게 되었다.

39. 우리 인생들 모두 성자 앞에 그러하다. 네 욕을 통해서 네 영을 키우고 만들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다!

<2012년 12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주 편

1. 나 성자의 문을 누가 노크하여 열겠느냐. 내 분체의 문 먼저 두드려라. 그러면 쉽다.
2. 나 성자의 문을 두드려도 나는 나와 잘 통하는 분체에게 보낸다. 그는 욕이니 욕인 너희와 잘 통하지 않느냐.
3. 낮은 자가 잘 통한다. 점진적으로 내 앞에 나아와라. 나 성자의 문전에 있는 분체의 문부터 열어라.
4. 내 분체는 끝장을 볼 때까지 한다. 끝까지 한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내가 문을 안 열어주는 것을 알고, 내가 대답하나 안 하나 나의 문을 두드린다. 고로 분체를 잡고 다니라는 것이다.
5. 끝에 가서 흐리멍덩하여 형체가 변하면 처음에 열심히 한 것이 구름같이 된다.
6. 사람은 처음에는 ‘태산’같이 하다가 끝에 가서는 ‘티끌’같이 한다. 갈수록 강하게 속력을 내야 성공한다.
7. 해마다 잘 뛰다가 한 해의 끝인 12월에 가서는 흐지부지하는 자가 있다. 이런 자는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거두지 않는 농부와 같다. 미련한 자요, 정신이 썩은 자다.
8. 저마다 잠재 능력이 있다. 이것은 잠재의식 단계다. 자기의식 단계다. 자기 인식 단계다. 인식과 실체는 다르다. 실제에서 확 도전하여 실제 자기 실력까지 가 보는 것이 인식의 답이다.
9. 혼계에서 혼이 보면, 보다 확실히 안다.
10. 잠재 단계는 마음과 정신 단계다. 고로 잠재 능력은 마음과 정신에서 끝나기도 한다. 이는 미완성으로 확실한 실체는 못 된다.
11. 혼계를 거쳐 확인하고 영계로 가서 더 확실히 하기다. <잠재적 정신 단계>는 조각을 만들 때 구상 단계이고, <혼적 단계>는 흙으로 빚은 단계이고, <영적 단계>는 잘 다듬어서 주물을 뜬 단계이다.
12. 마음과 정신 세계는 행동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다. 행동해야 이루어진다. 고로 정신 단계는 하나의 설계도와 같다. 고로 나 성자와 통하는 것도 실체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 행하는 것도 혼적인 급으로 행했느냐, 영적인 급으로 행했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
13. 신약 안에는 성약 세계가 없다. 다만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나오는 통로만 있다. 구약 속에는 신약 세계가 없었다. 다만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나오는 통로, 곧 ‘예수’라는 길이 있었다.
14. 끝까지 나의 분체의 문을 두드려서 만나야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면서 가게 된다.
15. 끝까지 두드려야 주인이 어디 갔다 와도 만나게 된다. 자기 생각으로 두드리지 말고, 주인 되는 신랑 나 성자의 생각으로 두드려라.

16. 하늘 세계는 항상 끝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다.
17. 섭리역사 끝자락에서 본체와 분체도 선포했고, 새 땅으로 가게 했다.
18. 10개월 끝에 가야 옥동자가 나온다. 그 전에는 만들어지는 중이라서, 나와도 관리하면서 키우고 만들어야 된다.
19. 내 분체도 긴긴 세월 21년 동안 만들어서 겨우 성장하여 시대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폈다. 그것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폈다.
20.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천천히, 작게, 점점 퍼 나간다. 마치 나무가 크듯이, 과일이 크듯이, 집을 짓듯이, 책을 읽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치가 그러하다. 알고 행하여라. 알고 살아라.
21. 조급한 자는 조금밖에 못 한다.
22. 항상 봄이 아니고, 항상 여름이 아니고, 항상 가을이 아니고, 항상 겨울이 아니다. 나 성자도 항상 그대로 똑같이 역사를 펴지 않는다. 사람이 방에 들어가면 문을 열고 닫듯이, 나도 때를 따라 엄격히 행한다.
23. 천국을 발견했으니, 이를 확실히 믿고 살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도전하고 매일 희망으로 천국길을 가라! 나 성자와 시대 보낸 자는 너희 영육의 소망이다.
24. 보이는 겉을 통해 안 보이는 속을 알듯, 보이는 육 분체를 통해 안 보이는 나 성자를 알아라.
25. 내가 보낸 자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과 바꿀 수 없게 얼마나 크고 좋은지, 너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 봤으니 알 것이다. 만일 죽음을 당하는 고통 중에 가 본다면 더 잘 알 것이다. 보낸 자가 없으면 인원수에 상관없이 구원은 못 받는다.
26. 이 시대의 문을 못 찾고 자기가 열어야 될 문을 못 찾으면, 사막과 광야의 삶을 살면서 헤매다가 만다.
27. “저 사람은 좋은데 무섭다!” 하고 인식하게 되면, 안 따라간다.
28. “저 사람 좋기도 하고 무섭지도 않다.” 하면, 따라간다. (내 철학이다. 양 떼를 몰듯 하여라.)
29. 회개하면 나 성자와 소통되고, 내가 말씀한다. ‘회개’는 청산이고, 정결이고, 나와 일체 되는 일이다.
30. 깨달는 만큼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고, 실천하는 만큼 행동의 차원이 높아진다.

<2013년 1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31. 우리가 하나님과 성자를 진정 사랑할 때, 전능자 하나님도 성자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낮고 낮은 자에게 오셔서 역사하신다.
32. 잠깐 친하게 지내고 잠깐 사랑하며 살려 하지 말고, 진정 끝까지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주를 위해 모든 삶을 산다고 하며 고하고, 마음을 쏟아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도 끝까지 역사하신다.
33. 주를 지식으로만 믿고, 어떤 제도로만 믿고 따르면 절대 안 된다. 진지한 마음과, 진실한 심정과, 참된 사랑의 행위로 믿고 따라라.
34. 희생자는 진정한 생명의 결실자만 희망으로 쳐다본다. 결실자가 작거나 어려도 그를 데리고 시대 구원의 새 뜻을

떠 나간다.

35. 기대했던 자가 떠나면, 작은 자를 키우면서 기필코 역사를 편다. 떠난 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니, 건너편에서 고통 받으며 살아 피골상접이 되어 있었다.

36. 주는 받은 주권이 있어서 언제나 누구나 그 주권으로 구원하여 그와 같이 정녕 뜻을 펴신다. 다만 좀 늦는다는 것 뿐이다.

37. 한 남자가 있는데, 그에게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남자는 자기가 젊으니, 그 여자에게는 마음을 접고 새로운 여자를 찾았다. 이제는 여자의 모순을 알았으니, 이전에 사랑했던 그런 여자는 절대 선택하지 않고 온전한 자를 골랐다. 주도 그러하시다.

38. 짝사랑했던 자는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사막 길을 가고 있고, 다시 만난 자는 황금마차를 타고 황금 길을 가고 있다. 하늘은 정녕코 더 좋게 이룬다.

39. 섭리사에서 성자와 보낸 자를 짝사랑하게 만든 자들은 결국 천운을 뺏기고 실 가닥 길을 가게 되었다.

40. 짝사랑하게 하는 자는 짝이 못 된다.

41. 성자께서 내게 짝사랑의 슬픈 사연을 털어 놓으셨다. 선생은 성자께 “그 사람은 변하니,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사랑할게요. 그 사람 정말 못됐어요.” 했다. 성자 주님은 결국 선생을 가지고 뜻을 이루고 말았고, 시대 섭리의 신부들도 키우셨다.

42. 짝사랑하게 하는 자에게 주님은 아예 사랑의 뜻을 못 이룬다고 하시며 등을 돌리신다.

43. 짝사랑하게 하는 자는 겉은 금도금이고, 속은 돌덩이다.

44. 짝사랑하게 하는 자는 2012년도에 다 끊어버리고 쪼개지게 했다. 그 밭을 다시 일구어, 거기에 좋은 과일나무를 심으려나.

45. 먼저 매달리고 먼저 사랑하기다.

46. 미련한 자는 몰라서도 못 하고, 알고서도 못 해서 늘 미련을 품고 산다.

<2013년 1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아주 중요

47. 지금이 섭리사 황금기다. 모르는 자들은 기다리고 있다. 후에 가서 알면 헛일이다. 후손들은 알게 된다.

48. <본체 - 분체 시대>다! (본체가 살아 있는 분체를 통해서 역사할 때) 이때가 황금기다. 황금기의 끝자락은 더욱 황금벌판 시대다.

49.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아라. 인간의 생각은 짐승의 생각보다 한 단계 위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최고 위에 있다.

50. 자기 주관, 자기중심,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습관, 자기 버릇이 뇌에 절어 있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사니 멸망이요, 함정이요, 절벽이다.

51. 기도해도 하늘 앞에 상달되는 것만 응답된다.

52. 말씀을 듣고 머리에 기억하고 암기한 것만 써 먹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과 성자의 머리에 들어간 것만 상달된다.
53. 분체가 이 세상에 없으면, 마치 남편이 죽은 과부의 삶과 같이 된다. 육신 세상에서는 ‘육’의 영향이 그리도 크다.
54. 성자 분체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아라!
55. 성자 분체의 육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역사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56. 남자가 집에 있으면 도둑이 잘 안 들듯이, 사탄이 틈타는 것도 다른 어떤 것도 성자 분체가 있을 때는 정말 다르다. 성자 분체가 살아 있는 이때가 최고 황금기이니, <휴거 역사>를 한다!
57. <계시>는 심정의 세계다.
58. <영계>도 심정의 세계로 가게 된다.
59. 영계에 가면, 혼도 영도 육계에서 육과 마음이 행하는 그대로 하고 있다.
60. <천국>은 심정의 세계다. 고로 가령, 상대가 글을 가지고 있어도 심정으로 통하여 그 글을 읽는다.
61. 육신 세계의 육은 육이 정신 차리는 만큼 힘이 집중되어 글이 써진다. 정신과 힘 모두 연구해 보고 실습해 보아라. 손가락을 들면 손가락을 들 만큼만 힘이 오고, 밥그릇을 들면 밥그릇을 들 만큼만 힘이 오고, 아기를 들면 아기를 들 만큼만 힘이 온다. 자기가 최대로 들면 자기 몸무게 이상의 무게를 든다. 이와 같이 100% 정신 차리면 바로 혼계와 영계로 연결된다.
62. 섭리사 황금기인 이때는 하루 힘써서 한 것이 다른 때 100일, 1000일 힘써서 한 것보다 낫고 효과가 있다. 이때는 안 되는 것도 되는 때다. / 선생도 예전에 1년 해도 안 되던 것을 요즘에는 하루에 한다. / 머리로 그러하니 지체들도 그러하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라! 이때가 지나면 안 된다. 이때가 지나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도 안 된다. 그때는 거울철에 눈 위에서 영산홍이 피는 것만큼 힘들다.
63. 농사지를 때도 어느 때는 하루에 3개월 일한 것만큼 할 때가 있다. 바로 ‘퇴비할 때’다. 그때 못하면 곡식과 나무가 퇴비를 못 빨아먹는다. 그때가 과일이 클 때이며, 곡식의 알맹이가 물이 잘 때다. / 그때를 놓치면 후에 퇴비해도 나무도 곡식도 주인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기를 “게으른 자야. 가을이 오나 마나다.” 한다.
64. 농부가 밭을 매는 때가 있다. 곡식이 어렸을 때 잡초가 곡식과 함께 크는데, 이때 바로 잡초를 뽑아 주는 것이 3개월 동안 곡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때 잡초를 안 뽑아 주면 곡식이 잡초에게 영양을 다 뺏겨서 크지 못한다. / 이때 곡식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야. 이놈아, 가을이 오나 마나다. 나 이제 늙어서 알곡을 못 만든다. 너도 포기하고 집에 가. 내년에 다시 해.” 한다. / 성자와 분체는 이를 알고 속 탄다. 왜 잡초를 뽑는 때에 탄 짓을 하느냐. 너희는 육신이 아니냐. 마음과 혼으로 살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해라!
65.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법을 알아야 하고, 장사를 하려면 장사 법을 알아야 하고, 과일나무를 심으려면 과일나무를 기르는 법과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 저마다 자기 영을 위해서 배워라.
66. 사랑하자고 할 때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자를 택해 결혼해서 산 자가 후에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니 되겠느냐.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자에게 뺏겼다. 다만 따라가면서 시중을 들 뿐이다.
67.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떠난 후에야 완전히 준비하고 와서 신랑을 찾았다. 그러니 소식이 없었다. 준비할 때는 놀면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다. 준비하며 기다릴 때가 따로 있고,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맞을 때가 따로 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68. 시험 보는 기간 때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된다. 그때 이미 결정된다. 시험이야 실력이 없으면 반 이상은 떨어지고 3분의 1만 남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명 다 잘 하면 100명 다 구원받는다.

69. 선생이 여기 있어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니 모두에게 최고로 좋은 때다! 선생이 나오면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지금 안 하는 자들은 참으로 미련한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아예 안 믿는다. 내가 밖에서 같이 뛰고 있을 때도 안 하던 자들이다. 여우다. 보이면 하는 자는 성자도 봐야 하는 자다. 보이냐 안 보이냐 행하는 자가 주인이다.

70. 고장 나지 않은 스마트폰은 어디 있으나 늘 통한다.

71. 만일 스마트폰이 “상대가 옆에 있어야 통하지. 옆방에 가 있으니 못 통해.” 하면, 그 스마트폰은 기능을 못 하니 때려 부셔야 된다.

72. 편안하면 정신 안 차리고 살고, 쫓기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찾는다. 그러면 늘 쫓기게 하신다. 잘될 수록 더 잘해라.

73. 마음 변하면 욕이 귀한 시간을 다 써 버린다. 귀한 시간을 욕이 못 쓰게 하고 영이 쓰게 하여라.

74. 월명동에 크레인과 포클레인이 있을 때 모두 같이 힘을 모아서 돌을 옮겨야지, 크레인과 포클레인이 없을 때는 100명, 1000명이 힘을 합쳐서 해도 높은 데 돌을 못 세운다. 크레인이 일할 때 포클레인도 뒤에서 잡아주고, 앞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매달아 주고, 돌을 그 위치에 세울 때 손으로 정확히 잡아 쥐야 돌을 정확한 곳에 놓고 세운다. 이와 같이 섭리사 일도 집중할 때 해야지, 그때 못 하면 못한다.

75. 세상의 모든 예언이나 전설은 이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조명해 주는 호롱불, 등불, 반딧불 정도다.

76.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성자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셨다. 시대 사명자는 그 날짜를 모르고 행했으나, 성자 주께서 알고 때에 맞춰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자가 하실 일을 세상의 이방들이 예비하게 하신다.

77. 마야 문명의 예언도 하나님의 핵심 역사에서 하는 말씀을 겨우 조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78. (세상의 예언이나 전설은) 태풍이 부니 300km 떨어진 곳에서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흔들리는 격이다.

79. 2013년도에는 2012년도까지 만들어진 자를 데리고 역사를 끌고 나간다. 못 만든 자는 마치 차를 못 만들어서 걸어서 따라오는 격이 된다.

80. ‘조금만 더’ 힘써서 만들면 만들 자들이 몰라서 못 만든다. 새벽기도를 감행하여라. 집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꼭 해야 된다.

81. 2012년의 무덤에서 벗어나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못 나오면 구시대권에서 살게 된다.

82. 2013년을 위해 선생은 이미 각자를 위해 다 기도해 났으니, 본인만 잘하면 부활된다. 최선을 다해라. 그럼 된다!

<2013년 1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83. 500m 떨어진 곳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하자. 자기 눈으로 보려면, 집중해서 봐야 된다. 집중 안 하면 안 보인다. 그와 같이 신앙을 할 때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84. 영계에 집중하기 전에 육계에서 보낸 자에게 집중하여라. 집중하면 그 속이 느껴져 보이게 된다.

85. 집중하면 딴 생각이 안 생기고, 오직 집중한 것만 생각난다. 그러다가 집중한 것이 보이는데, 생각의 실상으로 보이게 된다.
86. 성자와 그 분체에게 집중하면 사탄이 손을 못 댈다. 사탄은 영물이라서 ‘마음’을 뺏는다. 그러니 우리가 성자와 그 분체에게 집중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을 못 뺏는다. 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와 통화할 때는 ‘통화중’이라서 다른 자와는 못 통한다. 이와 같이 집중하여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라!
87. 세상만사 그 어떤 일도 집중해야 잘된다. 길을 갈 때 차 조심하면서 집중, 차를 탈 때도 집중, 먹을 때도 집중, 일 할 때도 집중이다.
88. 집중하면, 하는 일이 훨씬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89. 집중했을 때 생명줄을 잡게 된다. 집중해서 하면, 성자 주를 보면서 그 분체를 따라가면서 자기 인생을 운전할 수 있다.
90. 집중이 제일 잘될 때는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할 때다. 사랑하면 집중한다.
91.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성자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92. 사랑하는 자만 자기 것이니, 바로 알고 통하고 그만 찾아서 간다.
93.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에게도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라는 기회를 은밀히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안 믿었다. 결국 그 영들은 사망으로 갔다.
94. 세상에서 하나님만 믿고 메시아는 안 믿고 죽은 영들은 모두 사망으로 가 있다. 확인할 것도 없다. 하나님도 믿고 메시아도 믿었으나 물질세계나 좇던 자들의 영도 사망으로 가 있다.
95. 완전하게 하면 그 일이 완전하게 된다. 완전하게 안 하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도 못 한다.
96. 지상에는 세 명의 아담이 있다. 구원역사의 시작인 에덴 때, 성자의 초림 때, 성자의 재림 때다. 마지막 재림 때는 ‘완성’이다. 처음은 ‘시작’이고, 중간은 ‘과정’이고, 마지막은 ‘완성’이다. 이를 이해하면 된다. 땅의 인간은 성자께 쓰여 지는 몸이다.
97. 약점을 잡힌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가 살려고 의인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갖은 중상모략을 하여 억울하게 했다. 의인은 자신의 결백을 해명할 길이 없으니 가만히 있었다. 세상이 악하고 재판자가 악하니, 실상을 안 보고 그저 상대가 당했다고 말하니까 그 말만 들었다. 3년 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고나서 어떻게 했겠느냐. 주권의 칼자루를 잡았으니 행한 대로 갚아 주었다.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아 주셨다.
98. 요셉이 무죄로 판결 받아서 왕이 요셉에게 총리대신 자리를 준 것이 아니다. 왕의 문제를 풀어 주었기 때문에 총리대신 자리를 준 것이다. 곧 왕이 준 권세다. 이 시대도 시대의 문제를 풀어 줘야 된다.
99. 하나님만 무죄의 대가를 주신다. 세상에서는 죄인이라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는 무죄이니, 천국에는 죄의 흔적도 없다.
100. 하늘의 사람을 억울하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억울하게 했으면 억울함으로 대하신다.
101. 하나님은 사명자와 함께 행위대로 행하신다.

102. 악이 아무리 세상을 잡고 의인들과 악한 자들을 억울하게 해도 매일 심판하여 질항아리 깨트리듯 깨트리신다. 성자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
103. (주 편) 가다가 어려울 때만 잘하면 광야 길을 통과한다. 그러나 대개 어려울 때 주저앉는다. 어려울 때 잘하여 광야 길을 벗어나게 되니, 그때는 옆 사람에게 말하고 내 분체에게 말하여 그 차에 올라타라.
104. (주 편) 잘할 때는 영웅이다. 못 할 때가 문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두 잡아 주어라. 그때 사탄이 뜻을 못 이루게 방해하니, 모두 잡고 끌고 와라!
105. (주 편) 사탄은 가만히 있다가 너희가 뜻을 이룰 때쯤에 방해한다. 그때 나 성자도 내 분체도 옆에 있으니 기도하면서 담대히 하여라.
106. (주 편) 사탄도 사람들도 너희가 하늘의 뜻과 먼 때에는 그냥 놔두다가도 너희가 목적을 이루려 하면 손대며 방해한다.
107. (주 편) 환난 때, 어려울 때가 그동안 이루려던 것을 이루는 때다. 그때 사탄이 와서 인사탄과 함께 방해한다. 담대히 행하여라!
108. (주 편) 휴거 때는 환난이 극심하다. 추수 때는 들쥐와 다람쥐들이 극성이다. 추수 때는 비가 오고 추위도 추수에 집중해서 거둬들이기다!
109. (주 편) 월명동은 나 성자가 내 분체와 함께 만들어서 너희에게 줬다. 이제 쓰면 된다. 시대 말씀도 나 성자가 내 분체를 통해 너희에게 주었으니, 저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살면 된다.
110.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데 남의 힘을 의지하며 팔려 간다.
111. 실천자만 휴거된다. 욕이 실천하면, 그 영도 실제로 실천하며 변화된다. 그러다가 나 성자가 오면 나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112. 과정 중에 욕의 행위를 통해 영이 점점 휴거 영으로 변화된다. 그러면서 점점 휴거의 장소로 가고 있다.
113. 정신적 사랑 - 혼적 사랑 - 영적 사랑으로 차원을 높여라. 영적 사랑이 완성급 사랑이다.
114. 영이 차원이 높아도 자기 혼을 통해서 자기 욕에게 임해 나타난다. 고로 욕이 강해야 영을 제대로 반영하여 살게 된다.
115. 욕이 완벽히 했다면 영과 교통하며 깨달아 영적 차원의 깨달음을 얻는다.
116. <깨달음>이 정신적 차원인지, 혼적 차원인지, 영적 차원인지 그 강도를 보면 안다.
117. 어떤 것이 깨달아져도 욕적인 정신적 차원에서는 약하게 느껴지고, 혼적 차원에서는 더 강하게 느껴지고, 영적 차원에서는 아주 강하게 느껴진다.
118. 영으로 깨달아야 확실히 안다. 영으로 깨달아야 분체를 시인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119. 아는 만큼 행한다. 욕적으로 알면 그 차원에서 행하고, 영적으로 알면 그 차원에서 행한다. 오직 나 성자와 내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2013년 1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육계에서 차원이 낮아서 안 잡히면, 영계에서 화면을 잡아라.
2. 육계의 정신, 생각 차원은 항상 낮다. 영계 차원으로 들어가라.
3. 지혜가 크다. 그중에서도 분별의 지혜가 크다.
4. 영적 지혜, 육적 지혜다.
5.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영적 지혜이며, 땅에 속한 지혜는 육적 지혜다.
6.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는 사람을 쓰고 순간 나타나신다.
7. 성자 주는 꿈에나 생시에나 상징적으로 나타나신다. 사람이나, 사람의 영이나, 천사나, 만물을 통해 깨우치며 나타나신다.
8. 성자 주는 재림 때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쓰고 오신다.
9. 구약 때는 아브라함, 노아, 모세, 엘리야,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삼손, 기드온, 다윗, 솔로몬 등을 쓰고 역사하셨다.
10. 발은 신발을 쓰고 역사하듯,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사람을 쓰고 역사하신다.
11. 뇌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 육신을 쓰고 역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사람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혹은 사람의 영체나 혼체를 쓰기도 역사하시고, 만물이나 천사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신다.
12. 삼위일체는 삼위일체와 일체 된 자를 쓰신다.
13. 삼위일체가 자기를 쓴다는 것을 완전히 아는 자를 잘 쓰신다.
14. 신은 말이 없으시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
15. 신이 말을 해도 인간의 귀로는 안 들린다. 신의 말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들린다.
16. ‘쫓개는 것’이 지혜다.
17. ‘비유’가 지혜다.
18. ‘비유’는 근본을 깨닫게 하는 중보자다.
19. 해가 떠서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쳐다보는 것이 지혜다. 아는 척하면서 “해가 저 산봉우리로 간다.”, “아니다. 저 쪽 산으로 간다.”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미련한 행위다.
20. 지식자와 지혜자는 계절을 따지면서 말한다.
21. 산의 노루는 쫓으면 쫓는 반대편으로 달아나지만, 토끼는 쫓는 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쳐다보고 있다. 나는 이를 알고, 제자리에 못 오게 하고 계속 쫓았다. 고로 토끼가 직진할 때 돌아가다가 잡았다.

22. 호랑이는 쫓으면 뒤돌아서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

23. 비유는 지혜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비유로 말한다.

24. 분별이 지혜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얻기 전에 분별하고, 얻은 후에 분별한다.

25. 지혜자는 현실만 보고 행하지 않는다.

26. 처음에는 꿀같이 달게 먹으나 후에는 토한다.

27. 과일이나 곡식의 껍질은 먹을 때가 돼야 벗긴다. 이와 같이 생명의 알곡을 추수할 때가 되면, 거죽은 벗겨서 버린다.

28. 먹기 전에 껍질을 벗겨 놓으면, 벌레가 와서 뜯어 먹고 빨아 먹는다.

29. 벼는 추수 때 1차 거둬들이고 타작하여 곡간에 들인다. 그리고 건조시킨 후에 2차 탈곡하여 껍데기를 쪼개 낸다. 과일도 추수 때 1차 좋은 것만 거둬들이고, 먹을 때 2차 껍질을 벗겨서 먹는다. 하늘의 생명 알곡과 과일도 그러하다. 인생의 때가 돼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죽인 육신과 알곡인 영혼을 쪼개 내시고, 그제야 알곡인 영혼을 취하신다.

30. 곡식이나 과일이나 먹고 난 후에 영양가는 몸에 흡수되어 살이 되고 뼈가 되어 윤택하게 한다. 찌꺼기는 배설물로 버린다.

31. 하나님은 인간 영혼의 추수도 이와 같이 하신다. 하늘나라로 취하기 전에 땅에서 때가 되면 1차 쪼개 내고, 인간의 육신이 죽고 영혼을 취할 때 2차로 거죽인 육신은 세상에 버리고 알곡인 영혼만 취하신다. '육'은 '혼과 영'을 싸고 있던 지체라고 이해하면 된다.

<2013년 1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32. 자기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생각을 하면, 즉시 자기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명령하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쳐내 버려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자기 육신을 고생시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매질하시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된다.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요, 자기를 형통하게 다스리는 자다.

33. 이성을 생각하면, 자기가 즉시 손으로 머리를 때려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달아난다.

34. 선생은 나 자신을 만들 때, 내가 게으르면 국기봉을 한 바퀴 돌게 하면서 나 스스로 아주 무섭게 찢값을 주었다. 그리고 썰기를 내 몸에 대고 쏘았다. 죄지으면 이같이 고생하게 된다 생각하며 찢값을 주었다. 못된 생각은 내 원수요, 강도요, 도둑이요, 살인자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만들었다.

35. 다른 사람을 보며 투덜대고 원망하지 않고 혼자 원망하고 투덜대더라도 몇 시간씩 나를 혼내고 밥을 굶기면서 엄한 형벌의 찢값을 주었다. 이같이 하니 습관이 되고 체질에 배서 그런 짓을 나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무서워서 안 하게 되었다.

36. 인간은 마음의 나사를 풀어 놓고 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로운 지옥 속에서 살게 만든다.

37. 모질고 엄하게 자기 생각을 잡고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사탄에게도 악한 사람들에게도 힐문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책잡히지 않고, 하나님께도 심판받지 않는다. 고로 나 스스로에게 모질고 엄하게 하나님과 메시아의 법을 지키게 했다.

38. 20대 때였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는데 겨울이라 너무 추웠다. 그래서 몸을 사리며 씻지 않고 기도하려 했다. 그때 내가 나를 끌고 나가서 겨울철에 얼음을 깨고 목욕하고 새벽기도를 했다. 그렇게 하니,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가 내 육신을 고생시킨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도 내 육신도 확 잡아 놓고 끌고 다니면서 걸렸다.
39. 지옥에 안 가려면, 하나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못 하거든 때마다 지옥 채찍을 맞으며 감행하면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된다. 고로 다시는 안 한다.
40. 술과 담배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 하찮은 것도 끊을 정신과 생각이 없어서 못 끊는 자가 어떻게 지옥 줄을 끊느냐.
41. 편하게만 살려고 다 찌그러지고 냄새나는 초가집에서 다리 뻗고 눕느냐. 고생돼도 이때 혈기 부리는 것과 화내는 것을 다 뜯어 없애 버리고 새 집을 지어라. 모든 삶도 이리해야 된다.
42. 자기 나쁜 생각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자기 좋은 생각 때문에 자기가 흥한다. 자기가 만들 것을 각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43. 이성과 각종 세상적인 것을 못 끊고 못 버리니, 결국 영원한 멸망의 세계를 가기 싫어도 가게 된다.
44. 육신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게 살겠느냐. 육에 속한 것은 한계가 있다. 마음이 안 편하고 영이 안 편한데, 육만 편하면 되겠느냐. 육이 편해도 마음과 영이 곤고하다.
45. 체질을 고치면 남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편하다.
46. 국가나 사회의 종교계나, 경제계나, 정치계나, 예술계나, 학문계나 ‘육’은 간판이 좋고 번지르르하다. 그러나 그 생각과 행위는 썩고 부패되어, 부끄럽고 더럽고 야비하고 추잡하고 가련한 각종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세상의 명예가 뭐 그리 크냐. 이 모든 육적인 것들을 전능자에게 낱알이 고한다. 모두 회개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것이다.
47.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만든 세상이 썩고 부패되고, 최고로 사랑했던 인간들이 그리 사니, 하나님과 성자는 사명자의 보고를 받으시고 그동안에도 다 처리하셨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해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네가 한 일의 대가를 영원히 받아라.” 하신다.
48. 자기도 고치고, 남도 고치기다.
49. 하나님과 성자 주께 기도하기를 “온 세상의 야비하고 추악한 꼴을 더 보시겠나이니까?” 했다. 이에 성자 주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정한 때가 되어 더 볼 시간이 없다.” 하셨다.
50. 남이 잘되면 배 아파하고, 머리 아파하고, 괴로워서 잠 못 자며 그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행하시는 일인데 시기하며 막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못된 마음과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51. 권력 쓰며 행하다가 모두 시대 사명자의 눈에 걸렸다. 하나님께 걸렸다.
52. 마음이 억센 배추와 같은 자들에게는 소금을 한 뒷박씩 뿌려 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53. 마음이 역새같이 억센 자들은 소금 가지고 안 되니, 불을 질러 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54.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썩게 하는 누룩들에게는 모두 하늘의 사자들을 보내어 거둬 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그들은 갈 데는 있지만, 올 데는 없다.
55. 사기·횡령·폭력·불법 등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은 쇠밧줄로 꾹꾹 묶어 꾹꾹 언 얼음판에 갖다 놔야 된다고 매일 기도

한다. 개인·민족·세계를 한 집같이 보고 기도한다.

56. 모두 이같이 기도하여 이 세상을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 하나님의 세상을 되찾자!

57. 하루는 1년과 같다. 고로 매시간 사탄과 마귀를 지배하고 점검해야 된다. 사탄 마귀 없애기다! 사탄 마귀는 그냥은 못 행하니, 사람을 통해 꾀고 거짓말을 하면서 들어온다. 사탄 마귀는 ‘거짓’을 사탄 마귀의 나라에서는 ‘참’이라고 하며 사용한다.

58. 내 평생 사탄 마귀를 봤는데, 그들은 항상 거짓말을 했고 항상 사람을 망치기 위해 행했다.

59. 사탄 마귀 굶겨 죽이기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의 죄를 먹고 힘을 내서 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

60. 형제끼리 거짓말하지 말고 야비한 짓 하지 말아라. 결국 그 형제가 다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61. 오직 정직이다!

<2013년 1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기도하는 자는 오직 기도로 다 해결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해야 된다.

2. 일 처리를 하는 자는 오직 일 처리를 잘해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며 일해야 된다.

3. 각자 자기 센터마다 그것을 100% 하여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4. 인간은 지혜와 지식의 그릇이 작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아시는 것들과 그 생각과 많은 것을 부어 주셔도 ‘인간의 수준만큼만’ 채워서 알고 누리며 산다.

5. 사람이라도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고 마음의 그릇을 키워서 전능자가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 높고 깊고 큰 것을 알고 받고 누리고 기뻐하며 산다.

6. 인간의 머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육체 생각 차원의 머리다. 둘째, 혼체 생각 차원의 머리다. 셋째, 영체 생각 차원의 머리다.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삼위가 주시는 것들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 차원이 좌우된다.

7. <육적 머리>는 인간의 보편적 생각의 그릇이다. <혼적 머리>는 4차원적 생각의 그릇이다. <영적 머리>는 신적 생각의 그릇이다.

8. <보편적 머리의 그릇>은 귀한 것과 큰 것을 줘도 보편적으로 받아 보편적으로 알고 생각하고 누린다. <신적 머리의 그릇>은 귀한 것과 큰 것을 준 만큼 신적인 생각을 하며 크게 받고 누리고 기뻐한다.

9. 어린아이에게 명소에다 별장을 지어서 줬더니 어린아이만큼만 알고 누리며 기뻐했다. 그 어린아이가 20대가 되니 지능이 발달되어 같은 별장인데도 더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다. 30대가 되니 더 생각의 그릇이 커져서 같은 별장인데도 더 가치를 알고 미쳐 좋아하며 그만큼 귀히 썼다. /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러하다.

10. 귀한 사명을 받아도, 귀한 시대를 만나도, 귀한 구원자를 만나도, 귀하신 성자를 믿고 사랑해도 ‘자기 지혜와 지식과 지능의 그릇대로만’ 알고 누리며 가치 있게 생각한다.

11. 주가 예전에 그렇게도 가까이 붙어 도와주고, 사랑해 주고, 말씀을 주고, 같이 먹고 살았어도 그 큰 가치를 보통으

로 알고 주를 대하더니만, 10~20년 후에 그같이 안 해 주는데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크게 생각하고 산다. 이는 자신이 그만큼 컸기에 그제야 큰 자를 만난 것을 알고 귀하게 대하며 좋아하는 것이다.

12. 월명동 소나무나, ‘큰 바위 얼굴’바위나, 성자바위나, 월명동의 환경이나 모두 ‘자기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그릇이 큰 자만’ 그 가치를 알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마음의 차원대로만’ 성삼위께 감사하고 좋아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쓴다.

13. 부모가 10대, 20대, 30대, 40대 자녀에게 각각 1억씩을 줬다. 자녀들은 즉시 자기 지능과 생각의 그릇대로 돈을 사용했다. 10대 자녀는 옷을 사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여기저기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다니는 데 썼다. 20대 자녀는 공부하는 데 썼다. 30대 자녀는 새 집을 짓는 데 썼다. 40대 자녀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여 더 큰돈을 벌기 시작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 인간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각자 자기 지능과 생각과 마음의 그릇대로’ 쓴다.

14. 월명동이 아무리 “가치 있다. 큰 것이다. 귀한 것이다.” 말해 줘도 어린아이나 어른을 막론하고 육적으로 알면 보통으로 쓰고, 생각의 차원이 높으신 주님과 같이 영적으로 알면 귀하게 쓰게 된다.

15. 천국도 그러하다. 자기 지능과 지혜와 수고한 것 이상의 위치에 갖다 놔도 자기 그릇이 그 가치를 담지 못하니 가치 있게 쓰지도 못한다. 고로 <천국>은 ‘자기 지능과 지혜와 수고한 그릇대로’ 그 차원의 위치에 가서 살게 된다.

16. 하나님은 절대 낙원급 영을 천국급 세계에 가게 하지 않으신다. 낙원급 영을 천국급 세계에 데려다 놔도 자기 그릇이 안 되니 그 가치만큼 쓰지도 못하고,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린다. 고로 낙원급 영에게는 절대 천국급 차원의 구원을 주지 않으신다.

17. 상대가 자기 애인이 아니면, 낮이나 밤이나 절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생활하지 못하게 한다. 상대가 자기 형제이면 형제 차원만큼만 허락하고, 상대가 타인이면 타인의 위치에서만 만나고 대화한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께서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대하시는 것과 천국의 위치를 정하시는 것이 절대적이다.

18. 월명동 잔디밭 위치에만 잔디를 심고 가꾸고, 흙 위치에는 절대 잔디를 안 심고 흙을 깔아 운동장을 만들었다. 물이 있는 연못에는 잔디를 안 심었고, 운동장에는 물을 가두지 않고 흙만 깔았다. 돌 조경에는 잔디를 안 심었고 물도 가두지 않고 돌만 세우고 쌓았다. 그리고 소나무 심을 곳에는 절대 잔디를 안 심었고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도 안 심었다. 각각 구분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천국 - 낙원 - 선영계 - 음부 - 무저갱 - 지옥도 절대 구분되어 있다. 각각 그 위치에 해당되는 자의 영들이 간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보낸 자를 통해 땅에서 뜻을 펴시는데, 그에 따라 영계의 어느 위치에 가느냐 결정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전능하신 그 차원만큼 알고 느끼고 즐기며 존재하신다. 성삼위는 인간을 구원하여 신의 차원만큼 키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추게 하시고, 그 영을 삼위의 상대체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랑하며 사신다. 인간의 영이 삼위의 상대급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더라도 그 차원에서 못 산다.

20. 아무리 임금의 사랑하는 자라도 10대, 20대, 30대, 40대 나이에 따라서 누리고 살고, 깨닫고 아는 차원대로 누리고 산다.

21. 금메달을 딴 자만 그 가치를 안다.

22. 메시아도, 선지자들도, 사사들도, 왕들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하고 사는 자만 그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지,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다만 그 사명의 가치를 깨닫고 아는 자일수록 사명자가 가까이 쓴다.

23. 인간의 지능과 지혜의 그릇은 천층만층이다. ‘자기 차원대로’ 놓고, 먹고, 누리고 산다.

24. ‘주와 일체 되어 살수록’ 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차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그만큼 행함으로 자기 영을 변화시킨다. 고로 그 영은 차원 높은 천국에 가서 주의 상대가 되어 주와 사랑하며 살게 된다.

25. 그 작품을 만든 작가만이 그 작품의 가치를 안다.

26. 망원경도 성능대로 보인다. 어떤 망원경은 1000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10000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10만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이고, 어떤 것은 100만 미터 거리에 있는 것이 보인다. 천체 망원경은 1광년 거리에 있는 것까지 보인다. / 사람도 그러하다. '영적 차원대로' 능력이 좌우되어 그 차원을 내다보며 산다.

27. 누구나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세계만 보인다. '영의 눈'으로 봐야 영의 세계가 보인다. '혼의 눈'으로 보면 혼적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눈'으로 보면 차원대로 영의 세계를 보게 되고, 영의 세계 천국까지도 보게 된다.

28. 어린아이가 부모를 몰라줘도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자녀를 키우며 보람을 누리고 산다. '자녀가 클수록' 부모를 알아주니,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산다.

29. 자기 사랑하는 제자나 애인이 잘 몰라줘도 자기 대상이니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그러하시다.

30. 그러나 사랑하는 주체와 같이 상대가 되는 애인이 온전히 알고 온전한 상대가 되어 살 때, 더욱 만족하고 보람되고 그만큼 기쁜 것이다.

31. 육적으로 받으면 육의 한계선까지밖에 못 받는다.

32. 영적으로 받아야 많이 받고, 많이 느끼고, 많이 쓰고, 많이 깨닫고, 높은 차원에 이르게 된다. 기도 많이 하여라. 자기 차원대로 누린다. 사명 줘도 자기 그릇이 작고 자기 차원이 낮으면 못 누린다.

<2013년 1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33. 차원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34. '몸'도 '환경'도 갖출 것을 갖춰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신앙'도 그러하다.

35. 사람이 마음, 정신, 생각, 행실, 지혜, 지식 등 갖출 것을 갖추고 영적으로 신령해져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36. 마음·정신·생각의 형체는 '혼체'로서 육의 눈으로도 보이고 혼의 눈으로도 보인다.

37. 마음·정신·생각의 형체인 혼체는 육의 세계에서는 '육체'이고, 영의 세계에서는 '혼체'다.

38. '육체'는 만져지고 느껴지고 완전히 존재해 있으니 실감 난다. 마음·정신·생각의 형체인 '혼체'는 육체같이 똑같이 만져지고 느껴지며 육체보다 더 실감 나게 존재한다. 육의 세계에서 육체가 활동하듯이, 혼체도 할 것을 다 한다.

39. 마음·정신·생각은 낮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활동하며 살고, 밤에 육이 잘 때 자기 육을 쓰고 '혼체'로 활동하며 혼적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다닌다.

40. 영계의 것은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혼체와 영체로 누려야지, 육체로는 못 누린다. 영계는 혼체와 영체로 누리고 사는 세계다.

41. 육계의 것은 육체로 누리지, 영체는 못 누린다.

42. 육의 것은 육체가 누리고 살고, 혼의 것은 혼체가 누리고 살고, 영의 것은 영체가 누리고 사는 것이다.

43. 마음·정신·생각은 <낮>에는 ‘육체’를 쓰고 누리고, <밤>에 육이 잘 때는 영에 속한 영의 몸인 ‘혼체’를 쓰고 누리고 느낀다. / 마음·정신·생각이 육체를 쓰고 누리고 느끼는 것보다 영의 몸인 혼체를 쓰고 누리고 느낄 때 훨씬 더 차원이 높다. / 만일 혼체가 영체와 결합되어 영체로 누리고 느끼면, 육체로 누리고 혼체로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고 크게 누린다. * 구원을 받는 데도, 휴거를 이루는 데도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차원 높여 생각해야 쉬운 방법과 쉬운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잠언을 듣겠습니다.

44.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차원 높이 생각하면 아주 쉬운 길이 있다.

45. 가령 바지가 긴데, 바지를 자르고 꿰매고 입으려면 어렵다. 쉬운 길은 무엇인가? 한 번 접어서 입으면 5초면 된다. /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 쉽게 할 일을 너무 어렵게 하니, 노력한 만큼 못 얻어 힘들어서 지쳐 버린다.

46. 전도하고 강의하는 것도 1시간에 할 것을 3시간, 5시간, 10시간씩 한다. 쉬운 길이 있다. 대화하면서 대화 중에 하기도 하고, 강의할 때 핵심만 딱 말해 주면 3시간 할 것도 20분, 30분에 한다. 이렇게 핵심을 딱 넣어 주니, 3시간 강의를 한 것보다 더 깊이 넣어 준다.

47.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돈으로 하려고 1000만 원, 1억씩 들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1원도 안 쓰고 기도만 간절히 했다. 그런데 그 일이 잘됐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의논해서 풀어서 해결했다.

48. 일을 안 되는 쪽으로 하면 많은 돈을 들여도 안 되고 많은 수고를 해도 안 된다. 되는 쪽을 알고 하면 돈도 안 들이고, 수고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상대가 나타나 그 일을 해 준다.

49. 매일 물을 먹으러 높은 산에 오르던 사람이 머리를 쓰고 노력하여 그 물이 자기 집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 놓고 매일 그 물을 먹었다. 물길을 내 주니 사시사철 물이 자기 집으로 흘러 들어왔다. <물>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고, ‘자기 어려운 일의 해답’이 되기도 한다.

50. 사람도 가르치고 감동시켜 놓으면 상대가 되어 해 준다. 그렇지 못하면 매일 시켜야 되는 수동식 사람이 된다.

51. 할 일만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는 자가 일을 쉽게 하는 자다. (각자 자기 경험을 통해 이 깊은 것을 깨달아 내 심정까지 깨달아라.)

52. 한 민족도 일을 안 할 것인데 하면, 수십억씩 손해가 가고, 국민들은 고통과 고생과 걱정과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다. 그러고도 손해요, 유익이 없다.

53. 한 민족이 전쟁을 안 할 것인데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손해겠느냐.

54.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그러하고 신앙적으로 볼 때 개인도, 팀들도, 각 기관들과 부서들도, 교회들도, 지역들도 그러하다. 안 할 것인데 하여 고통받고 손해 보지 말고, 기도하여 성자 주님과 그 분체와 그 가지들의 말을 듣고 확인하고 하여라.

55.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면, 육의 눈으로 차원 낮게 확인하기에 안 좋은 것도 좋게 판단하게 되고, 좋은 것도 안 좋게 판단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고 확인하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56. 기도하고 확인하면, 차원 높은 단계에서 보고 판단하기에 그 일이 차원 높은 단계에서 최고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57.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보약을 먹고 보약을 먹은 만큼만 일부 건강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뛰고 달

리며 운동했다. 고로 온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었다. 쉽게 건강의 일을 했다. 그러다가 운동선수가 되어 명예도 휘날리고 모두 우리러보게 했다.

58. ‘육 휴거’도 ‘영 휴거’도 쉽게 해라. 차원을 높이라는 말이다.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줘도 안 하니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는다.→ 육 휴거와 영 휴거를 쉽게 이루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생각해 보아라. 말해 보아라. 투자다. 성자 주님과 그 분체에게 ‘사랑 투자’다.

59. 너희 육과 영을 최첨단으로 휴거시키는 자를 사랑하여라.

60.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는 데도 쉬운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외치는 자 그를 통해 성자 본체도 분체도 역사하심을 믿어라. 그리고 첫째, 회개하여라. 둘째, 성자 본체를 인정하여라. 셋째,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성자 본체를 꼭 잡아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여라.

61. 전도도 쉽게, 관리도 쉽게, 설교도 쉽게, 강의도 쉽게 하고, 주님 사랑도 쉽게 하여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연구하고 반복해서 하면 ‘달인’이 되어 쉽게 하게 된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과정 가운데 연구하고 반복하여 훈련되고 단련되면 모든 일을 쉽게 하게 된다.

<2013년 1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육이 약하면 정신이 강해도 못 한다.

2. 육이 강해도 정신이 약하면 못 한다.

3.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강건이다!

4.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관리다!

5.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은 서로 연관되어 존재한다. 고로 영과 육이 일을 할 때는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이 연관되어 같이 행한다. 고로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강건해야 된다.

6. 마음은 원이로되 육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기도 하고, 육은 건강한테 마음과 혼과 영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하기도 한다.

7. 축구할 때 발도 몸도 건강하고 정상이어야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있는 것을 실천한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8.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라. 육과 영, 모두 전심을 다해야 된다.

9. <육>은 ‘땅’이라면, <마음, 혼, 영>은 ‘땅에 심은 나무나 곡식’과 같다.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은 이같이 연관되어 있기에 육도 마음도 절대 좋아야 된다.

10. 한 단계 높여서 보자. <육과 마음·정신·생각>은 ‘땅’과 같고, <혼과 영>은 ‘땅에 심은 나무나 곡식’과 같다. 고로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모두 문제가 없어야 모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11. 체질을 개선하고, 마음과 정신을 개선하고, 혼적으로 영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12. 100% 잘하려면 육, 마음, 혼, 영 다 정상이어야 된다.

13. 꿈에 혼체만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육계에서 잘해야 혼이 혼계에

서도 잘된다.

14. 차도 좋고, 엔진도 좋고, 운전하는 자가 운전도 잘해야 카레이스에서 1등을 한다. 이와 같이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이 다 잘해야 된다는 것이다.

15. 어떤 농부가 농사를 실패했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왜 농사를 실패했는지 보니, 거름은 많이 했는데 씨앗을 잘못 골라 뿌린 것이었다. / 거름은 육이고, 마음은 씨앗이다. 육은 최고로 수고했는데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실패한 것이다.

16.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제대로 수고해야 된다.

17. 신앙이나 삶이나 어느 때는 잘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됐다가 한다. 안 될 때는 육이나, 마음이나, 혼이나, 영이나 한 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8. 육, 마음, 혼, 영 모두 문제가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수고해도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19. 땅 편도 하늘 편도 문제가 없어야 된다.

20. 항상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중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1. 육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두 온전하게 하고 행하여라.

22. 육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났다 하자. 마음과 혼과 영이 불이 붙어서 기도하고자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고로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모두 강건하고 갖춰야 한다.

23. 육도 강건, 마음도 강건이다! 육도 강건, 혼도 강건이다! 혼도 강건, 영도 강건이다! 육에 속하는 육과 마음 모두 강건이다. 영에 속하는 혼과 영 모두 강건이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갖추지 않아서 곤고한 것이다.

24. 두 가지 모두 강건하게 하고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25. 항상 상대성 이치다.

26. 남자와 여자가 모두 갖춰져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혼자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27. 자기 혼자 날고기며 기고만장해도 하늘의 성자가 갖춰져야 된다.

28. 갖추기다.

<2013년 1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글씨 한 자라도 잘 쓰려면, 육신과 마음 모두 갖춰야 한다.

2. 글을 쓰는 자가 급하게 써서 글씨를 못 알아보게 써 놓고서, 교정할 때 무슨 글씨인지 모르겠다며 화내고 괴로워한다. <설명> : 선생님이 선생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육과 마음 모두 갖추라는 잠언이 나오면서, 그 잠언을 받아쓰는 중에...)내 글씨가 엉망이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글씨를 잘 써서 내 보내야 이 잠언을 정리하는 자가 제대로 알아보고 정리하는데, 또 급하다며 글씨를 엉망으로 쓰고 있다. 내 버릇을 내가 고치고 말 것이다.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보겠네. 역사에 남기려면, 제발 글씨 제대로 써야 돼. 육의 잘못된 습관과 버릇을 오늘부터 헌집 고치듯 다 때려 부수고 고치기다! 내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바깥에서 내 글을 보는 자들이 골치가 아파. 내가 나를 고치고 가르친다. 매일 늦어서 빨리 써야 된다고 이유를 대면서 변명하지 마라. 변명도 죄다. 앞으로 너 변명하면 질항하리 깨뜨리듯 그 사고를 깨 버린다. 변명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글씨 제대로 써! 내 버릇 내가 고치기다! 글씨를 천천히 잘

쓰면, 많이 써도 네 손가락이 얼얼하지 않지 않고 좋다. 그리고 10장을 써도 제대로 써진다. 네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보는 자들이 모두 고생이다. 섭리인들도 그러하다. 급하게 막 해 놓고 고생들 한다. 급한 자는 한 사람도 기드온 300 용사에 못 들어간다. 시간에 쫓긴다 하지 말고, 보다 일찍 시작해. 내 마음과 내 버릇을 내가 고쳐야지, 누가 고쳐 줘? 글 쓰는 것만 봐도 성격을 알아. 오늘부터 ‘육과 마음의 계엄령’을 선포한다. 빨리 성자 주 앞에 회개해. “주님, 앞으로 글을 예쁘게 쓰겠습니다. 제가 제 육과 마음의 모순을 깨부수고 짓뭇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주님 말씀) “잘했다. 네 마음이 너를 심판하니 깨끗하겠다. 자기가 해야 된다. 이제 내가 주는 잠언을 계속해서 쓰자.”

3. 고친 것과 안 고친 것은 그 차원이 하늘과 땅 차이다.

4. 급하다고 글씨를 막 써 놓으면 써 놓은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교정할 때 시간이 2~3시간 더 들어가고, 글씨를 급히 썼기에 내용도 좌우로 흔들려 있다.

5. 천천히 3시간가량 쓴 글이면, 아예 글을 쓸 때 내용도 다 넣고 글씨도 정자체로 써서 고칠 것도 없고 교정도 쉽다. 모든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6. 급하게 하면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

7. 야심작이 4번이나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의 한 가지 이유가 급하게 했기 때문이다.

8. 글은 ‘말’이다. 말을 빨리하면 듣는 자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화가 난다.

9. ‘말’도 급하게 빨리 하지 말아라. ‘글’도 급하게 흘림체로 막 쓰지 말아라. ‘일’도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에 그곳에서 빠져나가듯 급하게 하지 말아라.

10.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모두 갖추기다.

11. 집을 지을 때도 모든 자료를 다 갖추고 지어야 제대로 멋있게 짓게 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짓게 된다.

12.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픈 자들아. 육도, 마음·정신·생각도, 혼도, 영도 갖추어라!

13. 갖추지 않은 자의 영은 갖춰지지 않은 영계로 가게 된다.

14. 이 시대 구원을 받을 자가 성자와 그 분체를 갖추지 않고 ‘구원받는다. 휴거되겠다. 나는 신부다.’라고 할 수 없다.

15. 신부가 신랑을 갖추지 않고서 혼인 잔치 할 수 있겠느냐.

16. 과일나무는 열매를 갖춰야 과일나무라 할 수 있다.

17. 음식 재료들을 잘 배합하여 음식을 만들었어도, 소금을 안 갖추면 맛없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들이 갖추는 것을 하나만 안 갖추도 제대로 안 된다.

18. 상의만 입고 하의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다니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사람들은 갖추는 것을 안 갖추고 다닌다.

19. 100% 갖추고 100% 행하기다.

20. 시간 갖추기다. 기도 갖추기다.

21. 사랑 갖추기다. 열심 갖추기다.

22. 실천 갖추기다. 본체와 분체 갖추기다.
23.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일을 행하면 불가능이 없다.
24. 갖춰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25. 갖추지 않은 자는 누가 봐도 표가 난다.
26. 갖춰야 복이 온다.
27. 성자는 갖춘 자에게 주신다.
28. 성자는 갖춘 자를 찾으신다.
29. 성자 주는 전지전능하사 그 어떤 것으로도 목적인 것을 깨닫고 느끼게 해 주신다.
30. 총을 깨닫게 하려 하는데 합당한 사물이 없을 때는 젓가락을 총으로 비유하여 깨닫게 하신다. 코끼리를 보이며 계시하려고 했는데 코끼리가 없을 때는 개미가 지나가면 코끼리로 비유하여 깨닫고 느끼게 하신다.
31. 성자 주는 ‘만물’을 가지고 가장 많이 계시하신다. <특별계시>는 ‘사람’을 가지고 말씀하며 계시하신다.
32. 한번은 새벽에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씻고 있는데 소리가 나서 보니, 오랜만에 귀뚜라미가 나타나서 제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다. “너 정말 오랜만에 나타났다. 오늘 무슨 일 있니? 좋은 일 있으면 더 뛰어라.” 했다. 그랬더니 귀뚜라미가 더 높이 경충경충 뛰면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했다. 그래서 성자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 귀뚜라미를 통해서 주신 계시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했다. 이날 계시의 잠언이 바로 ‘짐승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입으로 잡는다.’였다. 이날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귀뚜라미를 통한 자연 계시를 풀었다.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 말을 실행하라는 것이었다.
33. 성자 주는 너의 마음을 통해서 계시하시니, 네 마음을 잘 살펴라. 그러면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34. 거짓말을 하는 자를 통해서 참말을 하는 자를 느끼게 하신다.
35. 사탄에 속한 자는 원수요, 마귀다. 이들은 거짓말을 한다.
36. 마음으로 느껴오는 계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37. 성자 주는 생시에 우리 육에게도, 혼의 세계인 꿈에서 우리 혼에게도 ‘만물’을 보여 계시하신다.
38. 새벽꿈에 콩떡과 팥떡 한 광주리가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 광주리 옆에서 시원하게 배설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떡을 먹으러 오던 여자들이 왔다가 배설한 것을 보고 돌아갔다.
39. <떡>은 ‘오늘 새벽 잠언’이고, <시원하게 배설한 것>은 ‘내가 글씨를 제대로 못 쓴다고 책망하고 실토한 잠언’이다. 그리고 <떡을 먹으러 왔다 간 여자들>은 ‘나와 겨루는 상대방’이다. 내 모순을 내가 스스로 책망하고 고치니, 나와 겨루는 자들이 내 떡에 손을 못 대고 간 것이다. 떡은 ‘말씀’이다. 오늘 주님이 주신 잠언을 콩떡, 팥떡같이 천천히 받아서 쓴 것이다. 오늘 ‘갖춰라!’ 하는 잠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 광주리의 콩떡, 팥떡과 같다. 이 떡을 ‘먹는 떡’으로 풀면 온종일 기다려도 떡 한쪽을 못 먹는다. 기성은 다니엘이 ‘인자는 구름타고 온다.’라고 한 계시를 보고, 구름을 ‘하늘 구름’으로 푸니, 평생 기다려도 구름 타고 오시는 성자 주를 못 맞는다. 구름은 ‘사람’이다. ‘성자는 사람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다. 과거 신약 때도 성자는 육신 가진 나사렛 예수님을 분체로 삼고 그를 타고 오셨다. 나사렛 예수님

도 청중 구름을 타고 오셨다. 이 시대에도 성자는 그 분체를 타고 오신다. 성자의 육이 되는 분체도 청중 구름을 타고 온다.

40. 하루는 화장실에 천장 구석 거미줄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걸려서 죽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성자의 계시를 전해 주는 귀뚜라미가 아니고 다른 작은 귀뚜라미였다. 이때 “어린 생명들도 사탄과 악한 인사탄의 거미줄에 얽혀 저러하다.” 깨닫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말해 주고, 나도 말씀과 서신으로 관리했다. 그리고 화장실의 다른 거미까지 모두 없애어, 성자의 계시를 전해 주는 귀뚜라미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게 해 주었다. 그 후 왕거미가 또 거미줄을 쳤다. 잡아 없앴다.

41. 사탄은 섭리 인생들을 얽으려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늘리듯 한다. 게으르면 걸리고, 책임 안 하면 걸리고, 기도 안 하면 걸린다. ‘열심’과 ‘책임 분담’과 ‘기도’로 사탄의 올무를 다 없애자!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하나님은 ‘섬겨 주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를 더 좋아하며 기뻐하신다.

2. <종>은 섬기고, <아들딸>은 공경하고, <애인>은 사랑한다.

3. 시대 말씀을 주었을 때 자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행하는 대로 종, 혹은 자녀, 혹은 애인으로 결정된다.

4. 하나님은 점점 차원을 높이시며 종 시대(구약) - 자녀 시대(신약) - 애인 시대(성약)를 펴셨다. 그 시대에 따라 처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공경하거나, 사랑하게 하신다.

5.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종이요, 자녀요, 애인이다. 그러나 인간끼리 볼 때는 서로 형제들이다. 종의 형제들이요, 혈통의 형제들이요, 애인의 형제들이다.

6.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시대에 따라 <신약 때>는 종들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고, <성약 때>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다.

7. 신앙적 자녀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으니, ‘사랑’이 크고도 크다. 시대 신부의 말씀으로 이같이 행하셨다.

8. 구약시대 - 신약시대 - 성약시대의 사랑은 종적 사랑 - 자녀적 사랑 - 애인적 사랑으로 구분된다. 성약시대는 가장 최고 위치의 사랑의 역사다. 고로 하나님은 섬기고 공경하는 것보다,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애인처럼 사랑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9. 가령,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다 하자. / 서로 자기를 종같이 섬겨 주기만 하면 사랑의 만족이 없을 것이다. / 혹은 서로 자기를 부모같이 공경해 주기만 하면 사랑의 만족이 없을 것이다. / 서로 섬겨 주고 공경해 주되, 사랑해 줘야 만족할 것이다.

10.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님도 그러하시다. 고로 사랑의 타락을 한 역사를 다시 근본으로 복직시키며 구원 역사를 펴 오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성약 섭리 역사를 시작하시어 <사랑의 역사>를 근본으로 복직시키셨다. <구약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해 왔고, <신약역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해 왔다. / 때가 되어 시대의 보낸 자는 하나님과 성자를 신부 입장에서 사랑하는 신앙을 했기에 하나님은 ‘성약의 문’을 열어 주셨다. 고로 이 시대로 온 자들은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1000년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가게 되었다. 이 역사가 <성약역사>다. <성약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거쳐서 역사적으로 완전히 복직된 역사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신부로서 온전히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에덴동산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이 복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섭리하셨다. 제1아담 이후, 제2아담과 제3아담을 통해서 역사가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근본자는 하나님이시다. 구약역사 이후 성자 주님이 제2아담을 통해 강림하시어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이루

시다가, 때가 되어 다시 강림하시어 땅에 세운 제3아담을 중심 표상자로 세우시고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다면 안 되는 역사다. 성자 주님이 다시 오시어 땅에 세운 제3아담을 통해 행하지 않으셨다면 안 되는 역사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던 사랑의 역사를 구약 4000년을 거치고 신약 2000년을 거쳐서 이제야 완전히 복직하여 성약 100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다.

11.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역사적으로 두 번의 역사를 거쳐서 세 번째로 진행되는 역사가 곧 성약역사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정화시키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2000년 동안 자녀로 정화시키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신랑으로 재림하여 땅에서 그의 대상인 신부를 세워 1000년 동안 마지막 사랑의 구원 역사를 펴신다.

12. 1000년 성약역사는 과거 4000년 구약역사와 2000년 신약역사와는 다른 역사다. 신구약 6000년 기간은 형벌 기간이며 회개 기간이었다. 다른 말로 성장 기간이라고도 한다.

13. <구약>은 0대까지의 기간이었고, <신약>은 10대까지의 기간이었고, <성약>은 20대의 기간과 같다. 고로 결혼하고 사는 기간과 같다.

14. 성약역사 기간은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이다. 고로 과거 신구약의 형벌 기간, 회개 기간, 성장 기간, 준비 기간과는 다르다. 성약 때는 다 길러 놓고 다 회개시켜 놓고, 1000년 동안 신부로서 혼인 잔치 하게 하고, 그 후에는 취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신다.

15. 성자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부터 먼저 땅에서 우리 육신에게 사랑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는 성삼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역사다. 땅에서 육으로 이루는 역사에 이어서 하늘에서 영으로 이루는 신령한 역사로 이어진다. 지금은 신령한 영 휴거 역사를 시작하려고 땅에서 육 휴거 역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16. 과일의 때가 왔어도 그 과일을 키우는 자만 알고, 먹는 자만 안다. 땅에서 성약역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17. 계절의 때가 왔을 때 그 계절에 피는 꽃을 보거나, 단풍을 보거나, 그 계절의 곡식과 과일을 보거나 먹는 자들만 때가 왔다는 것을 안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와도 새로운 역사에 참여한 자들만이 지상에 마지막 성약역사가 왔다는 것을 안다. 아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역사다.

18. 잔칫집에 가서 잔칫상을 받고 놀고 먹고 즐기는 자만 혼인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 이와 같이 시대 혼인 잔치 역사에 부름 받은 자들만 와서 먹고 마시며, 이 땅에 하늘의 혼인 잔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19. 해당되는 자의 세계다. 참여하는 자의 역사다.

20. 불교에 어떤 대행사가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관심도 없고, 알아도 갈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다. 그러니 불교에서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일이 10년 전에 지나갔는지, 100년 전에 지나갔는지 모른다. /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관심 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되었어도 모른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역사가 왔어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기다렸던 역사가 왔다는 것을 알고 같이 먹고 즐긴다.

21. 가령, 한 집안에서 가정 잔치를 한다 하자.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하지, 타인에게 알리고 하겠느냐. 가족들끼리만 하고 끝나는 것이다. 하늘의 역사도 그러하다.

22.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머나먼 타 지역으로 가서 결혼하여 살게 되었다. 그 전에는 철마다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생겨서 3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뛰어 다녔다. 고로 그동안 열심히 하던 농사 일도 안 하고 결혼 준비로 뛰어 다녔다. / 이를 보고 동네 사람들은 “저 여자는 일도 안 하고 건달이 되었네.” 하며 입방아를 찧어댔다.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갖은 욕을 퍼 부었다. “미친년같이 매일 어디를 가는 거야?” 했다. / 그

러나 어느 날부터 여자는 그 마을에 보이지 않았다. 결혼 준비가 끝나서 사랑하는 자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다. 이를 누가 알겠느냐. 그 여자의 심정을 알고, 그 여자를 따라다닌 자만 알 것이다. 동네 사람들 중에서는 후에 아는 사람들만 알게 될 것이다. /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도 역사가 지나간 후에 아는 자만 알게 될 것이다.

23. 주님은 신약 자녀권 역사를 애인으로 취하여 성약 역사를 시작하시고, 성약 역사로 온 자들의 육과 영을 각각 휴거 시키신다. 그러므로 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24. <구약 때>는 타락한 타인 같은 자들을 종으로 취하시고 종권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신약 때>는 구약의 종들을 자녀로 취하시고 자녀권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성약 때>는 신약의 자녀들을 애인으로 취하시고 신부권 구원 역사, 곧 최고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

25. <구약 때>는 종과 결혼한 격이고, <신약 때>는 형제와 결혼한 격이고, <성약 때>는 자기가 사랑으로 낳고 기른 자와 결혼한 격이니 낳은 정, 기른 정, 사랑의 정이 최고다!

26.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한 형제자매다.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같다. 나무는 같은데 가지만 다르다. 그러나 접붙이기를 할 때는 다른 데서 뺀 가지를 가져다 접붙인다.

27. 종교의 조상은 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지가 다르다.

28. <구약>이라는 종의 나무를 베고, <신약>이라는 자녀의 나무를 접붙여서 신약의 큰 나무가 되었다. 신약을 접붙이지 못한 가지에서는 종 열매가 열리고, 신약을 접붙인 나무에서는 자녀 열매가 열린다. / 때가 되니 <신약>이라는 자녀의 나무를 베고, <성약>이라는 신부의 나무를 접붙여서 현재 성약의 나무가 크고 있다. 성약을 접붙이지 못한 가지에서는 자녀 열매가 열리고, 성약을 접붙인 나무에서는 신부 열매가 열린다.

<2013년 1월 11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잠언>

1. 새 역사의 날은 새 역사를 시작하는 날에 시작되지만, 상황은 미리부터 시작된다.

2. 결혼식 날은 결혼식을 하는 날에 시작되지만, 이에 대한 상황은 미리부터 시작된다.

3. 아기는 아기를 낳는 날에 낳지만, 임신되어 태 안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것은 미리부터 시작된다. / 이와 같이 <영 휴거>도 휴거의 날에 시작되지만, 그 전에 미리부터 자기 육을 통해서 주를 만나 휴거 말씀을 듣고 행하여 휴거의 영으로 성장되고 만들어진다.

4. 외국에 가는 자가 비행기 타는 날은 정한 날이다. 그러나 외국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그 전부터 하게 된다. / 이와 같이 <영 휴거>도 휴거의 날에 시작되지만, 육을 통해서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여 휴거의 영으로 만든다.

5. <영 휴거>를 하려면, 우리 육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오신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이 휴거의 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시면 하늘로 휴거된다.

6. ‘육’은 자기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게 한 다음에 땅에서 휴거된 몸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육신이 생을 다할 때까지 천국에 간 자기 영과 교통하면서 살게 된다.

7. 육이 땅에서 휴거되었지만 영이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 이는 마치 결혼을 했어도 이상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는 자와 같다.

8. 생명 탄생의 법과 이치가 있듯이, 휴거되는 법과 이치가 있다. * 휴거의 법과 이치가 무엇인지, 들어 보겠습니다. (핵심)

9.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는 땅에서 난 사람으로서 눈에 보인다. 고로 그를 통해 전능하신 삼위일체인 성자를 맞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마치 결혼하는 한 여자같이 신앙의 신부가 되어 성자를 맞고 그와 일체 되어, 육도 영도 변화를 받아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한다. 그 영이 하늘나라 형상, 곧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정한 날에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시면, 성자를 맞고 휴거된다.

10. <영 휴거>는 정한 날에 시작되지만, 그 전에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영을 100% 완전히 변화시켜 하늘에 속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11. <육 휴거>를 생각해 보라. 어떻게 되었느냐. 전능하신 성자를 그 본체와 함께 맞고, 재림 말씀을 듣고, 주와 사랑으로 일체 되어, 휴거의 삶을 살았기에 새 역사에 와서 육 휴거를 이루었다.

12. <결혼>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으로 맞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 휴거>는 우리 육이 전능하신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땅에서 맞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재림하시는 성자를 신랑으로 맞는 것이다. 성자는 영체이시니 보이는 사명자, 곧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성자를 맞는 것이다.

13. 중보자를 통해 성자를 맞으니, 중보자를 몰라서 성자를 맞기 전에 먼저 중보자를 못 맞으면 근본자 성자도 못 맞는다.

14. 사명자는 구원자로서 성자의 육이다. 성자는 자신의 육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신다.

15. 자기 신랑을 통해서 신부의 몸으로 제2세 생명을 탄생시키듯이, 성자가 구원을 위해 보낸 자를 통해서 자기 몸으로 제2세인 '영'을 하늘에 속한 휴거의 영으로 탄생시킨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대에 성자가 보내신 성자의 몸인 구원자를 '주체'로 알고 맞아야 된다. 먼저 그를 맞고, 그로 말미암아 성자를 맞고 성자를 신랑으로 삼아야 된다. '육'으로는 <육을 가진 땅의 구원자>를 맞고, '영'으로는 '영이시며 구원의 근본자이신 성자 본체'를 맞는 것이다.

16. 그 시대 선지자를 맞지 못한 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맞지 못했다.

17. 그 시대 메시아를 맞지 못한 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맞지 못했다.

18.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자는 구약에 속한 자이고, 나사렛 예수가 보냈다고 하는 자는 신약에 속한 자이고, 성자가 보냈다고 하는 자는 성약에 속한 자다.

19.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사명이 좌우된다. 고로 시대의 뜻과 재림의 역사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좌우된다.

20. 성자는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말한다. 그가 보낸 자를 시대 구원자로 맞는 자가 <성약권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시대의 휴거를 이룬 자다. 구약 모세를 맞은 자는 <구약권 구원>을 받고, 나사렛 예수님을 맞은 자는 <신약권 구원>을 받고, 이 시대에 성자가 보낸 자를 맞은 자가 <성약권 구원>을 얻게 된다.

21. 선생이 보낸 자들 중에서도 누구를 맞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선생이 보낸 표상자를 맞느냐, 혹은 표상자가 아닌 자를 맞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실과 차원과 운명이 좌우된다.

22. 자기 몸에 있는 지체는 모두 다 자기 지체이지만, 표상 지체가 따로 있다. 이와 같이 모두 다 자기가 하는 일이지만,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목적을 두고 하는 그 일이 '표상의 일'이다. 거기를 중심하는 자가 표상이 된다. / 이와 같이 성자가 보낸 표상자도 성자가 목적을 두고 하는 표상의 일을 하고, 선생이 보낸 표상자도 선생이 목적을 두고 하는 표상의 일을 한다.

23. 중심자에게 중심의 일을 맡기고, 나머지에게는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나눠서 맡긴다.

24. 중심자와 절대 일체 된 자만이 중심의 일을 전달받게 된다.

25. 이 시대도 성자는 시대 중심자, 곧 땅의 구원자에게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중심의 말씀과 목적을 이루는 말씀을 다 주신다.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준다.
26. 몸에서 머리가 핵이요, 나머지는 지체다.
27. 중심자는 핵으로서 머리요,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
28. 결혼식 날은 '핵'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날들은 '본체의 날'이다. 본체의 날을 통해서 핵인 결혼식 날에 들어간다.
29. 항상 본체를 통해서 본체에게 나아가야 된다.
30. 본체는 본체로 가는 문이며 길이다.
31. 본체 없이는 본체를 알 수도 없고 본체에게 갈 수도 없다.
32. 본체 없이 휴거가 되는 자는 없다.
33. <본체>는 석유관이라면, <본체>는 석유다.
34. <본체>는 우주선의 모선(母船)이라면, <본체>는 착륙선이다.
35. <본체>는 건물이라면, <본체>는 집안이고 방이다.
36. 본체와 본체는 한 몸으로서 신부와 신랑이 되어 부부같이 산다. 고로 본체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휴거는 그와 동행이다.
37. <본체>는 땅이다. <휴거될 자들>은 곡식의 씨다. 곡식의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열 수도 없다.
38.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 돼야 한다.
39. 돌감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 참감이 열리게 하듯이, 자기라는 나무에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행실과 의를 일체시켜 삶으로 의의 열매를 열어야 된다.
40.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만 사용하고 자기중심으로 산다. 이런 자는 자기 행위가 자기를 그릇되게 가게 함으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꼴이 된다.
41. 그릇되게 행한 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 행위를 몰랐어도 스스로 자멸된다.
42. 지금도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자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 몸부림을 치고 있다.
43. 본체는 레이더망에 잡힌 화면을 보기 때문에 섭리사의 육과 영의 모습을 본다.
44. 자기 영은 영을 위해서 살라고 애원해도 자기 육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개를 치며 산다. 육과 영이 갈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45. 주를 좇지 않는 자들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에 처하여 스스로 숨게 된다.

46. 지구 세상 넓지만 자기가 사는 곳은 좁다. 고로 전체를 보고 사시는 성자께 묻고 행하여라.
47. 전능자는 하늘 보좌에서 살면서 땅에 발을 딛고 사신다. 고로 땅과 하늘을 다 보고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48. 사람이 자기 뜻대로 희망으로 살았다 하나 그 열매는 사망이요, 음부다.
49. 자기중심에다 주의 뜻을 넣고 살지 말고, 주를 중심으로 성자의 영광로에 자기중심을 넣고 살아라.
50.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야 큰 자다.
51. 적과 원수들에게 쫓길 때는.. 산과 암벽과 외딴집과 골짜기와 삭막한 곳들이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의 보금자리였다. 때가 되어 내가 승리하고 주권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과 주의 보좌와 성자의 궁과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나의 조국 나의 고향을 차지했다!
52. 옛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로운 땅이다!
53. 내가 성자 주님과 함께 악한 자들과 의의 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한 곳들이 결국 복음의 땅이 되었다.
54. 중국은 애굽이었다. 그곳으로 피하여 섭리사를 지휘하고 조건을 세웠다.
55. 선이 악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지만 조건을 세우고 악을 이기고 승리하면, 사탄과 함께 악을 1000년 동안 가둬 놓고 하나님의 뜻을 다 펴고 하늘에 오른다. 그 후에 악을 잠깐 풀어 놓는다. <참고> (계 20:1-3)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56. 1000년 역사 후에 사탄을 잠깐 풀어 놓는 기간은 1000년 동안 구원받을 새 시대 구원의 기회를 주었고, 그 당세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었지만 구원받지 못했기에 사탄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괴롭히는 기간이다. 하나의 형벌 기간이다. 주가 할 일을 다 하고 가셨으니, 사탄들이 잠깐 나와서 활보하는 것이다.
57.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주인이 밭에 없으니, 들쥐들이 나와서 밭을 휘젓고 다니는 기간과 같다.
58. 추수 날에 곡식을 추수한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그 해의 시작인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가꾸는 ‘과정’을 거쳐서 가을을 맞는다. / 이와 같이 육과 영의 휴거 역사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섭리역사를 시작할 때인 봄 같은 때부터 육과 영의 휴거 역사가 시작됐다. 그 과정을 거쳐서 추수 때와 같은 <영 휴거의 날>을 맞게 된다.
59. 새로 교회에 나오는 자들도 ‘시작’부터 휴거의 일을 하여 육도 영도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여라. /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듯이,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와 마음과 뜻을 일체 시켜 살고, 성자와도 일체 되어 살아라. 그러면 날마다 네 영이 새롭게 탄생되어 새롭게 거듭나고 성장하다가 ‘영 휴거의 날’에 성자 본체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 육은 보낸 자의 육으로 말미암아 휴거되고, 영은 영이신 성자 본체로 말미암아 휴거된다. (다시 말하면... 육은 보낸 자의 육을 맞아 그를 통해 성자를 맞고 땅에서 휴거되고, 영은 육을 통해 성장시키고 온전히 만들어 영이신 성자 본체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60. 흔히 사람들은 ‘휴거’ 하면 휴거 날만 기다린다. 그러면 절대 휴거되지 않는다. 휴거 날 전에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그를 키우고 그가 조건을 세우게 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이 시대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따라오면서 구원을 이루고 휴거 준비를 하게 된다. / 성자가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육도 영도 변화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성자 본체가 오시면,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진 영만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 어서 자기 영을 하늘에 속한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 <구원>은 주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자기 육도 영도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이다.

61. 땅 속에서 철을 캐내서 용광로에 녹여서 가공하여 차로 만들어야 차가 된다. / 이와 같이 자기 영을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만들겠느냐? / 성자가 뽑고 연단시켜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서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 먼저 그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와 일체 되어라. 그러면 그 삶 속에서 성자와도 일체 되어 자기 영이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진다. / 그러다가 정한 날, 영 휴거의 날이 되어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시면, 온전히 만들어진 영이 성자를 맞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 성자 본체가 오시면 온전히 준비된 영만 성자를 맞지,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영은 쳐다만 보고 맞지는 못한다.

62. <차>도 ‘과정’에서 만들어지듯이, <휴거>도 ‘과정’에서 육과 영이 만들어지면서 그 날에 이룬다.

63. 세상의 무엇이든지 만들어야 변화된다.

64. 세상의 물건도, 사람도 만들어야 완성된다. 육 만들기, 영 만들기다.

65. 태 안에서 육신을 만들어서 태어나듯이, 육신이 세상으로 나온 후에는 다시 하늘에 속한 육과 영으로 만들기다!

66. 과정에서 다 결정되니,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67. 100미터 경주를 하는 자는 ‘뛰는 과정’에서 승패가 결정되고, 우승이 결정된다.

68. 개인 역사도, 민족 역사도, 섭리역사도 ‘과정’에서 좌우된다.

69. 과정 없이 휴거의 날만 기다리는 자들은 봄에 씨도 안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와 같다.

70. 인생 하루를 살아 봐도 저녁 때 그날의 승패가 좌우되느냐. 시작인 아침부터 양단의 어떤 레일을 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

71. 처음과 나중, 그 사이에 승패가 좌우된다.

72. 국가 대표 선수가 경기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경기 중에 승패가 좌우된다. 고로 끝을 보기 전에 과정에서 점수를 계산해 보고, 지금은 누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과정 중에 결론이 결정된다.

73. 점수를 주는 자만 쳐다보지 말고, 어서 월등하게 싸워라. 점수는 혼자 안 준다. 여러 명이 주니까 월등히 잘하면 된다. / 이와 같이 성자만, 그 분체만, 분체가 보낸 자들만 쳐다보지 말고 어서 월등히 살아라! 그러면 눈에 다 띈다. 휴거의 육과 영이 된다.

74. 자기 행위의 의는 자기 몸에 있으니, 의를 달아 보면 정확히 나온다. 저울을 보고서 잘 부탁한다고 하지 말고, 더 뛰고, 더 행하고, 더 전도하고, 더 증거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의를 쌓아라. 그러면 저울은 못 속인다.

<2013년 1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하나님도 성자도 섬기는 사랑을 하면서 믿지 말아라.

2. 종들이나 섬기는 삶을 살았다.

3. 아들급 신앙인들은 섬기는 신앙을 벗어났다.

4.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하지 말아라.
5. 신부 시대는 섬김의 시대가 아니다. 사랑도 신앙도 그러하다.
6. 신부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만물보다 뛰어나게 '상대'가 되어 살아야 된다.
7.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가 되어 사는 자만 섬김의 굴레를 벗어나서 살게 된다.
8. 종이 주인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양자가 되어 살게 되었다. 이때는 섬김을 벗어나 아들로써 사랑을 하게 된다.
9. 남녀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할 때, '섬김의 사랑'을 벗어나 '상대적 사랑'을 하게 된다.
10. 하나님은 섬겨 주는 사랑보다 사랑이 동등한 입장에서 성장된 사랑, 상대적 사랑을 하도록 하셨다.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지금 이 시대가 그 목적을 이루는 시대다.
11. <구약>은 0대 때와 같고, <신약>은 10대 때와 같고, <성약>은 20대 때와 같다.
12. '말씀'도 <구약>은 태 안의 어린 생명같이 형성되었고, <신약>은 유치원생 정도같이 형성되었고, <성약>은 10~20대같이 형성되었다.
13. <신약>은 신부 시대가 아니다. 신부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만 하고 살았지, 신부와 사랑에 대해서는 모른다. <성약>은 마치 성장된 남녀가 만나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며 살듯 역사를 펴 나간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이 시대에 신부급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대하시며 '성장된 역사'를 펴고 계신다.
14. <신약>은 '자료 시대'이며, <성약>은 '그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 시대'다. 곧 <성약>은 자료를 가지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돌을 세워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15. '성장된 사랑, 곧 상대적 사랑'을 안 하고, '섬기는 사랑'만 하면 사랑의 만족도 없고 피곤하다.
16. 계시는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고 주신다.
17. 살은 먹어서 찌는 살이 있고, 운동해서 찌는 살이 있다. 은혜의 살도 이와 같다. 은혜의 살도 말씀을 듣고 찌는 살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뛰고 행하며 사명을 하면서 찌는 살이 있다. 뛰고 사명을 해서 찢은 은혜의 살이 더 탄력 있고 건강하다.
18. 말씀의 양식을 먹고 뛰고 달려, 탄력 있는 은혜의 몸으로 만들어라.
19. '섬기는 사랑'에서 '성장된 상대적 동등권의 사랑'을 하여라.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그것을 목적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20. 하나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되어 동등권의 사랑의 권리를 가지고 사랑하면 최고 사랑의 세계다.
21.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것이 동등권 사랑이다.
22. 어린아이는 사랑을 해 줘도 '섬기는 사랑'을 한다.
23. 성장돼야 '상대적 사랑'을 하게 된다.

24.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도 늘 섬겨 주고 도와주고 위해 주며 만족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 <신약시대>는 어려서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 <성약시대>가 왔는데도 지금도 성자 주님께서 성장하지 않은 어린 자들을 사랑하듯 하면, 늘 떠받들어 주고 섬겨 주는 사랑을 해야 하므로 만족이 없다.

25.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행실도, 혼도, 영도 성장된 사랑을 해야 성자 본체도 그 본체도 만족한다. '섬기는 사랑'이 아닌 '성장된 상대적 사랑'이다.

<2013년 1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주인공들은 일체 행하고, 구경꾼들은 자기 나름대로 상상해 보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행한다.
2. 구시대는 구경꾼들이며, 새 시대는 주인공들이다.
3. 기성인들은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인 '휴거'나, '천년왕국 혼인 잔치' 등을 자기들 나름대로 환상에 젖어 생각하고 가르친다.
4.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가 오셔서 사명자의 욕을 통해서 주인공과 함께 성경을 이룬다.
5. 실제로 성경에 예언한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는 사람들이 환상에 젖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루어진다.
6. 성경의 예언은 구시대에서 환상에 젖어 생각하고 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과 성자께서 실제 주인공인 사명자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데도 마음에 와 닿지 않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7. '<휴거>는 욕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성경을 환상으로 푸는 자들이다.
8. <욕신 휴거>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성자가 영으로 오셔서 땅의 사명자를 자신의 욕으로 삼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게 하여 신부 입장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사랑하며 삶을 살게 한다. 이것이 '휴거'다. 이것이 욕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욕이 땅에서 휴거된 것이다.
9. 하나님은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이 땅에 휴거 역사를 시대별로 펴 오셨다. 구약에서 신약역사로 온 것은 하나의 휴거 역사였다.
10. 신약 때 메시아가 왔어도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들만 구약에서 대망하고 기다렸던 4000년의 꿈과 이상을 이룬 자들이다. 안 따라간 자들은 환상에 젖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신의 형상으로 오실 줄 알았다.
11. 성경의 문자대로 하나님이 신의 모습으로 직접 오실 줄 알았던 자들 앞에 시골 청년인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 "너희가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나로다!" 했으니, 모두 믿지 않았다.
12. 예수님이 "지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했어도 구시대인들은 자기들이 환상으로 성경을 풀며 기다린 것과는 전혀 다르니, 믿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을 자기 신앙의 차원으로 본 것이다. 잘못된 주관으로 예수를 본 것이다.
13. 성경에 하나님이 오셔서 불로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했다. 예수님은 "'말씀'이 곧 불이니, 그 말씀으로 지금 선과 악을 쪼개며 심판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구시대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로 아예 구약 종교를 접하지 않았던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새 역사를 따랐다.
1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인간인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에 계획하신 일을 하니, 별 표가 안 났다. 전능자

가 사람을 중심해서 행하시는데 믿어야 할 자들이 믿지 않으니, 이방인들을 한 명씩 데려다가 역사를 펴 나갔다. 그러니 표가 나지 않았다.

15.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16.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성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뜻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

1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사람처럼 눈에 보이게 돌아다니면서 뜻을 펴는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구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없다.

18. 하나님과 성자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사명자를 뽑아서 그를 예비하여, 그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한 뜻을 펴신다. 재림역사도 성자가 이 땅에 와서 한 사람을 그의 몸으로 택하시고, 그를 쓰고 행하신다. 영이 와서 육신 쓰고 행한다. 그 육신을 보고 성자를 믿고, 그의 행함을 따라서 성자를 맞는 것이다.

19. 이 땅에서 뜻을 펼 때는... 영은 육을 쓰고 뜻을 편다.

20. 남자가 여자를 쓰고 아기를 낳듯이, 영은 육신을 쓰고 지상에 뜻을 편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21. 하나님은 육신을 쓰고 세상에 뜻을 이루려고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22.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함은 그 육신을 쓰고 사랑을 이루려 함이다.

23. 아담과 하와 이후, 종교 역사가 진행된 600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영이 직접 나타나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준 일도 없었고, 그 영이 직접 나타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준 일도 없었다. 다 ‘사람’을 감동시키고 가르치고,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계시하시어 ‘사람’을 통해 행하셨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도 성자도 그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행하셨다.

24. 자기 영이 자기 육신을 통해서 행하듯이, 자기 뇌신경이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통하니 자기 육신을 통해서 행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절대 자기를 사랑하고 100%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25. 나무와 열매다.

26. 주인과 물건이다.

27. (이와 같이) 육과 영이다. 땅과 하늘이다.

28. 성삼위와 인간이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그리고 그 육이 되는 인간이다.

30. 영은 육신을 쓰고 생명의 역사를 한다.

<2013년 1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하늘나라나 영계나 지구 세상이나 모두 법칙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법칙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며 환상을 뇌에 꽂 채우고 살고 있다.

2. 마치 꿈속을 헤매는 자들처럼 환각 작용에 의해 살고 있다.

3. 마약을 하고, 술을 먹고, 흥분제를 먹는 자들은 자극을 받아 환각 작용에 의해 살고 있다. 환상에서 깨어나면 허탈 감에 못 견뎌 또 그것을 접하고 또 그 속에서 헤맨다.
4. 현재 구시대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마치 마약 주사를 맞고 흥분제를 먹듯이 비원리적인 환상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이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환상과 흥분에 취해 중독되어 살고 있다. →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하면, 인간의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 지상은 악이 없는 천국이 된다.”라고 한다. / 또 비원리적 종교인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무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특별히 내가 14만 4천 무리에 뽑힌 자가 되었다.”라고 한다. / 모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온전한 말씀을 듣고 환상과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
5. 정신이 온전한 자들만 시대 보낸 사명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
6. 환각 작용에 의해 흥분하며 환상 속에 사는 자들은 모두 잘못된 말씀을 듣고 사는 비정상인들이다.
7. 신앙에 있어서 마음만 붕 떠서 흥분되어 환상에 젖어 사는 자들은 잘못된 구약과 신약의 약을 제조하여 먹었기 때문이다.
8. 사랑하는 신랑을 보고서 사랑에 취하고 기쁨에 취해야 정상이지, 자기 방에서 혼자 환상에 빠져 사랑에 미쳐서 흥분하는 것이 정상이나? 비원리적 말씀의 약을 먹은 자들은 자기 방에서 혼자 환상에 빠져 사랑에 흥분하는 자와 같다.
9.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가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은 자들은 모두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살고 있다.
10.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자기 환상에 취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마치 마약과 흥분제를 먹고 허공에서 기분을 내는 삶과 같다. 정상으로 살면서 기뻐해야 꿈과 환상이 아닌 실존을 이루며 산다.
11. 환상이나 흥분에 취해 사는 자는 마치 이미 죽은 애인의 사진을 보고 안 죽은 것같이 착각하고 대하는 격이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면 괴롭다. 꿈속에서 죽은 애인을 만나는 격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허무하니, 또 잠을 자는 자와 같다.
12. 시대 말씀을 듣고,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통해 시대 역사를 펴시는 성자와 함께 살아라! 이는 환상이 아니다. 실체다! 비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
13.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살고, 꿈속의 천국을 헤매는 자들아! 깨어나라! 살아나라!
14. 환상의 사고는 실체가 와야 없앨 수 있다.
15. 성자도, 휴거도, 새 역사도, 천국도 환상이 아니다. 꿈속도 아니다. 실존이다! 오직 성자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실존이 되고, 현실이 되고, 정상이 된다.
16.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은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산다.
17. 육을 위해 사는 삶은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이다. 고로 환상은 사라지듯이, 그 삶은 육체와 같이 사라지고 끝난다.
18. 영을 위해 성자 주님과 그 분체와 일체 되어 살아라. 환상으로 살지 말고, 영원히 실존하며 살아라.
19. 실존의 세계는 실존의 삶을 살아야 얻는다.
20. 지난날을 생각해 봐라. 저마다 환상의 삶을 산 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봐라.

21. 조건을 세우지도 않고 대가를 받기 위해 희망으로 사는 자들은 성자가 보실 때 다 환상에 젖어서 사는 자들이다.
22. 수고 없이 안일하고 편하게만 살면서 희망에 차서 사는 자들은 환상에 젖어서 흥분하며 사는 자들이다.
23. 고생돼도 수고하며 충성으로 사는 자들은 환상이 실존이 되어 기쁨으로 살게 된다.
24. 안 될 것인데, 된다고 하며 희망에 차서 사는 자도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사는 자다.
25. 성자가 주지도 않는 환상의 꿈은 다 버려라! 그것 때문에 실제 제 갈 길을 못 간다.
26. 환상은 실체가 오면 안개처럼 사라진다.
27. 현대인들은 환상의 희망에 머리가 중독되어 그 환상으로 기뻐하며 흥분하며 산다.
28. 꿈에서 깨라!
29. 주를 온전히 좇아야 환상과 꿈을 깨게 된다.
30. 환상에 사로잡혀 희망에 차 흥분되어 사는 자는 마치 한 여자를 짝사랑하는 한 남자와 같다. 고로 남자는 이루어 지지도 않을 사랑인데 혼자 좋아서 날뛰며, 낮마다 밤마다 혼자 사랑에 흥분되어 환각 작용으로 혼자 희망에 차서 산다. 그 여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못 봐도 혼자서 기뻐한다. / 어느 날, 누가 “당신은 뭐가 그리 기뻐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그 남자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 것을 생각하며 희망에 차서 살아요.” 했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분의 결혼식을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요.” 하며, 결혼식 사진을 보여 주었다. 그제야 그는 환상의 꿈을 깼다. / 예수의 육신 재림과 우리의 육신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도 그러하고, 육만을 위해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31. 성자와 자기와의 관계가 환상인지 확인하여라!
32. 성자를 향한 자기의 삶이 환상인지 확인하여라!
33. 성자 주님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러하신지, 아닌지 보아라. 다르면 자기 주관적 환상이다.
34. 짝사랑으로 혼자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기뻐 뛰지 말아라.
35. 환상은 흥분제다. 먹는 자만 그 같은 쇼크가 일어난다.
36. 악인의 삶은 환상의 삶이다. 고로 결국 사망길을 거치고, 심판의 장소를 거치고, 지옥의 세계로 간다. 행여 좋은 길을 가는가 생각하지 말고, 어서 환상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돌이켜라!
37. 악인의 계획은 환상이다. 신혼골수를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 사자들과 같이 불같이 행하신다.
38. 상상의 삶은 자기중심의 삶이다.
39. 오직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러면 환상도 꿈도 아닌 실체가 되어 산다.
40. 자기 혼자 좋아하며 자기중심으로 사는 삶은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사는 삶이다.
41. 사탄은 우리가 환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것에 빠져 살도록 유혹한다.

42. 오직 성자 본체와 그 본체와 함께 사는 삶만이 고생대도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실존 세계가 된다.
43. 미친 자들이 환상에 묶여 흥분하며 산다. 어느 때는 귀신에게 끌려가서 가시덤불로 들어가서는 “이곳이 궁궐이다! 꽃밭이다!” 한다. 그러다가 가시가 찌르면, 그제야 정신이 잠깐 돌아와 돌이킨다.
44. 10대들아. 20대들아. 세상 삶의 환상에 빠져 흥분되어 살지 말아라! 최고 황금기인 너희 때에 인생이 갈 길을 제대로 결정하여 진입부터 환상이 아닌 실제 생명의 소망길로 들어갈 때다.
45.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자기 갈 길을 가지 말아라. 이는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사는 삶이다.
46. 이성애에 빠져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살고, 게임에 빠져 환상에 젖어 흥분하며 산다. 이는 마약이나 흥분제를 먹은 것과 똑같다.
47. 분에 넘치는 사고와 행위도 환상에 젖어서 흥분하며 사는 삶이다.
48. (너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오직 시대 말씀을 따라서 목적을 두고 살면서 주의 손발이 되어 살아라!

<2013년 1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영계에서는 자기 빛이 있어야 성자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2. 빛 중에서 ‘사랑의 빛’이 가장 강하다.
3. 지구 세상에서도 태양이 비추어도 빛을 발하려면, 그 물체가 빛나야 태양빛을 받아 더욱 빛나듯이, 천국에서도 그러하다.
4. 육도 영도 ‘변화의 기쁨’이다.
5. 태양은 세상 물질계의 생명들을 존재하게 하듯이, 천국은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영들과 그 세계를 존재하게 한다.
6. 천국에 자기 영의 그림자가 있다면, 자기가 빛나서 그 빛 때문에 반사되는 그림자 형상이다. 세상에서 자기 육의 그림자는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7.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현상을 통해 성자 주님을 보기도 하고 영계를 보기도 한다. 성자 주님의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성자의 것과 자기 수준과 차원의 현상과 겹쳐서 보는 것이다.
8. 자기가 빛나지 못하면, 주님을 제대로 못 본다.
9. 자기 죄를 쪼개 내야 성자 주님이 그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의 제물을 받으신다.
10. 아브라함은 제물을 쪼개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11. 이 시대 말씀도 쪼개야 모순과 비진리가 모두 드러나 말씀의 불이 온전하게 붙는다.
12. 쪼개지 않으면 말씀의 불이 안 붙는다.
13. 엘리야는 큰일을 하고 승리하고도 자포자기했다. 승리 후에 환난이 또 오니, 그때 포기한 것이다.

14. 환난과 핍박이 거듭 와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싸워 주신다. 다 자기 몫이 아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몫도 있다. 자기 몫은 적다. 악인의 결과는 예정돼 있다. 하나님은 아예 악인의 결과를 예정해 놓으셨는데, 스스로 폭탄이 터지듯이 해 놓으셨다.

15.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육의 형상도, 그 지능과 지식도, 영의 형상도, 영의 생각도 모두 형상만 사람이었다. 태 안의 생명이 점점 성장하여 완전한 형체를 갖추는 것같이, 육도 영도 그렇게 성장해 왔다.

16. 옛날 원시인들은 육과 영의 수준이 원시인급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뜻을 깨우쳐 줄 수가 없었다. 고로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이 변화되고, 문명이 발전되고, 지능이 높아진 후에야 하나님은 겨우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셨다.

17.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성장 과정>을 통한 창조였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완성되게 하셨다.

18. 인간은 처음에는 짐승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役事)와 진리로 인해 인간의 육과 영이 변화되고 발전되었다. 결국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완성시켜 그 영이 천국까지 가도록 창조하셨다.

19. 무능한 육과 영도 육계와 영계에서 계속 만들고 완성하면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완성된 영은 천국에 가게 된다.

20. 땅의 흙도 수십만 년이 흘러오면서 고체 상태로 변화되면 ‘돌’이 되고, 귀한 ‘돌 보석’이 되어서 보석 취급을 받는다. 인간도 이와 같다.

21. 인간의 영은 어느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발전된다. 그러므로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 발전과 변화를 이루지 못하여 천국에 못 가는 영은 흑암으로 가게 된다.

22. 성경을 보면 지옥과 악영계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와 있지 않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과 천국은 창조했으나, 지옥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 고로 <지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 할 수 없다. <지옥>은 타락한 영, 루시퍼로 인해 생긴 세계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루시퍼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많아지니 지옥이 확장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더욱 악한 자들을 처리하도록 지옥의 세계를 정하신 것이다.

23. 루시퍼나 사탄 마귀들이나 악한 영들은 때가 되면 지옥에 갇힌다. 고로 악한 행위도 끝나고, 인간의 뇌에서도 사라지게 된다.

24. 때가 되면 선과 악이 완전히 쪼개진다.

25.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쪼개지면, 서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처한 세계에서 자기에게 처한 것만 생각하며 산다.

26. 성자 주님만 간절하다고 해서 자기에게 그 마음이 와 닿지 않는다. 자기도 간절해야 주님의 마음이 와 닿는다.

27. 성자는 영이시다. 고로 그 사랑도 마음도 역사도 마음으로 느낀다.

28. 나무 품종이 좋아도 과일이 크게 안 열리면, 그에 해당되게 쪼개져서 팔린다.

29.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자는 지옥문까지 가게 된다. 그러다가 순간 지옥으로 떨어진다.

30. 영원히 처할 처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31.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인성의 기도, 육적인 기도만 하다가 만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속에서 깊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에게까지 간다.

32. 시대 진리를 알고 절대적인 역사도 알면서 하는 사랑이, 순간 감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다.

33. 표상자를 따라서 행하는 사랑을 하여라.

34.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려면 자기 책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역사의 책임도 해야 된다. 이는 역사를 위해 세울 조건이다!

35. 시대 구원을 받은 자는 성자 주님과 그 분체의 마음을 가지고, 시대를 구원하는 삶도 살아야 된다.

36. 시대 사명자가 성자와 함께 시대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십자가로 인해 구원의 길을 열어 났으니, 이제 자기가 행해야 된다.

<2013년 1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37. 초림 때는 성자가 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몸에 임하셔서 그를 자신의 몸으로 쓰시며 역사하셨다.

38. 재림 때도 성자가 다시 오시되, 이 시대에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에게 임하셔서 그를 자신의 몸으로 쓰시며 역사를 펴신다.

39.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도 신이니 구원자로 택한 자의 몸을 쓰고 역사하셨다. 그 위에 하나님도 오셨다.

40. 한 사람을 자신의 몸으로 택하여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 성자도 오시고 하나님도 오신 것이다.

41.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에게 간다고 약속하고, 자기 충신을 대신 보내어 그 일을 했으면, 임금이 간 것과 같다.

42.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고 도우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43. 나사렛 예수를 따른 것은 전능하신 성자를 따른 것이다.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다.

44. 이 시대 재림 때도 지난 초림 때같이 전능하신 성자께서 동시성으로 사람의 육을 쓰고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와 같이 행하셨다. 다만 땅에서 쓰이는 사람의 사명이 선지자, 혹은 사사, 혹은 메시아였다.

45. 이 시대 재림 때도 성자는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니, 그 사명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성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 사명자는 성자 주님이 오시는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이는 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며 일하신다.

46. 이 시대 사명자는 성자 본체가 아니다. 그를 태운 차와 같다. 분체다. 시대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과 성자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

47. 시대 사명자도 먼저 시대 구원을 이루고, 성자를 모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며 역사를 편다.

48. 시대 사명자의 말을 듣고 성자를 따르는 것이다. 성자는 늘 사명자를 쓰고 나타나 말씀하신다. 근본의 구원자는 오직 성자다. 그는 본체로서 영이니, 사람의 육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다. 전화나 TV는 전파를 타고 나타난다.

49. 성약역사에서 말씀을 주는 근본자는 성자이시다. 고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성자를 사랑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50. 성자가 쓰시는 육신만 사랑하면 땅에서 끝나고 육에서 끝난다. 성자 본체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 영원까지 간다.
51. 세상은 육의 세상이다. 고로 하나님도 성자도 본체인 영체로 강림하여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인간의 육신을 쓰고 강림하여 일하신다. 큰 자는 크게 쓰시고, 작은 자는 작게 쓰신다.
52. 과수원에서 과일을 딸 때 과일이 익는 대로 따 들인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휴거의 영으로 준비된 대로 거두신다. 과일을 거둬서 차로 싣고 가듯이, 성자 주님도 천사장이 나팔 불면 본체 영으로 오셔서 예비되어 거둬들인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53. 휴거 날만 귀히 쳐다볼 것 없다. 지금 자기 영이 예비된 자들 속에 들어가서 성자께 취함을 받아야 된다.
54. 과수원지기가 추수 때에 썩지 않고 익은 과일을 따듯이, 지금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예비된 영들을 따서 모으고 있다. 거기에 속한 영이 돼야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시면 주님을 맞고 천국으로 올라간다. 휴거의 날에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지 않는다. 지금 과정 가운데 결정된다. 고로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고르실 때가 중요하다. 지금은 <영 휴거의 과정 중>이다. (새 역사 부활의 때인 2013년부터는 섭리사 마지막 3차 부활의 때로서 자기 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때다.)
55. 휴거 날, 그때 우리 영을 변화시키고 키우고 성장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그 전에 결정된다.
56. 결혼식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애하는 기간이 중요하다. 연애할 때 결혼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정될 때가 중요하다.
57. 영이 휴거될 자는 천사장이 나팔 불기 전에 과정 중에 결정된다.
5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지금 휴거될 자들을 저울에 달고 분별하고 계신다.
59. 휴거의 대상자들인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믿음과 행실과 성령과 말씀으로 마지막 변화를 이뤄야 된다.
60.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된다.
61. 절대 성자와 일체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영이 근본으로 깨어난다.
62. 영이 깨어나야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잠에서 깨어나 나팔 소리를 듣고 성자 본체를 맞게 된다. 잠자는 자는 누가 집에 왔다가도 모른다.
63. 성자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기도하여 혼과 영으로 봐야 된다.
64. 영이 깨어 있는 자는 성자 주님과 통한다.
65.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지 않고서는 영이 휴거되지 않는다.
66. 영 휴거 전에 하나님과 성자 주와 다 통해야 된다.
67.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

68. 기도에 투자하여라.

<2013년 1월 18일 ` 새벽 잠언>

1. 천국에는 방도 있고 침실도 있지만, 천국의 영들은 잠을 자지는 않는다.
2. 영들도 피곤하면 쉰다. 그러나 육이 아니기에 피곤해도 힘이 없지는 않다.
3. 천국에는 각종 음식이 많다. 자기 취향대로 먹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영이라 배설물이 없다.
4. 천국의 날씨는 사시사철 화창하고 청명하다.
5. 천국에서는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좋아한다.
6. 세상은 속과 겉이 다르지만, 천국은 속도 겉도 투명체같이 빛난다.
7. 천국에서도 늘 마음을 닦으며 산다. 그 마음이 찬란하게 빛난다.
8. 천국에 사는 영들은 '사랑'으로 빛난다. 사랑의 대상은 삼위일체다.
9.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마음으로 인해 얼굴에 빛이 나듯이, 천국에서도 삼위일체를 사랑하여 그 마음으로 인해 빛이 난다.
10. 천국은 하나님 사랑, 공경, 존경이 연속되는 세계다.
11.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은 더욱 빛이 난다.
12. 세상에서 남녀의 육체 사랑을 가지고서는 천국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세상 사랑은 한계가 있고, 싫증이 나고,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며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권태가 찾아오고, 처음에는 사랑이 불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식고 멀어지고 미워진다. /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 번 사랑하면 사랑의 시동이 걸려서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이 불탄다.
13. 영은 육과 전혀 다르다. <육>은 시, 분, 초를 두고 변화무쌍하지만, <영>은 하나님과 성자와 교통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적 능력과 성품과 생각이 작용하여 변함없다. 또한 영은 육체가 아니라서 피곤함도 없고, 변질됨도 없다.
14. 우리 영이 하나님과 성자와 사랑하면, 그 사랑은 태양과 같다. 마치 한 여자가 왕을 사랑하니, 일순간 왕과 일체되어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왕의 수준까지 올라가 그 상대가 되듯이, 우리 영도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인해 이같이 변화되어 존재한다.
15. 세상의 사랑으로는 천국의 사랑을 이해시키지 못한다. 이해시키자면,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우리 영의 사랑은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처음에 서로 푹 빠져서 오직 사랑으로만 불탈 때와 같이 사랑이 불탄다. 천국에서는 휴거되어 천국에 온 모든 영들의 사랑의 대상은 삼위일체다.
16. 세상의 사랑은 성적 관계를 통한 육체적 느낌을 위한 단순한 사랑이다. 천국의 사랑은 육적인 쾌감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다.
17. 천국의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육과 영을 구

원하기 위해 성자를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수십만 번 도와주고 지켜 주시고, 성자가 육신 쓰고 역사하시고 시대 말씀을 주시어 우리 육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성자 본체와 그 분체로 인해 우리 영을 신부의 영으로 변화시켜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사랑하며 살게 해 준 것이다. 이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자와의 사랑에 불이 붙어서 삶 자체를 사랑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

18. 세상의 사랑은 자기를 창조하지도 않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지도 않은 단순한 육체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여 육체적 느낌을 느끼며 순간 불타는 사랑이다.

19. 세상의 사랑은 처음에 상대적인 사랑을 할 때 사랑이 불타다가도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살면 가족이 된 연고로 자동적으로 식구 사랑, 형제 사랑으로 점점 수준이 떨어진다.

20. 세상의 이성적 사랑의 근본은 '생육과 번성'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21. 그러나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육체적 사랑을 쓰면서 사니, 타락되어 사랑의 방향이 타락의 세계로 흘러가 버렸다.

22. 하나님은 인간에게 육체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쾌락을 누리며, 그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접붙여서 살라고 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육체 사랑의 세계도 깨지게 되었고, 또 다른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사랑을 누리며 삶으로 이 세상은 이성 타락의 세계가 되어 버렸다.

23. 하나님과의 천국 사랑은 번성을 위한 육체 사랑이 아니다. 오직 사랑만을 위한 사랑이다. 고로 하체 육적 사랑이 아닌 상체 뇌의 사랑, 곧 마음·정신·생각의 혼적 사랑, 영적 사랑이다. 고로 번성을 목적으로 한 육적 사랑처럼 순간 끝나고 마는 사랑이 아니다. 뇌로, 머리로, 마음으로, 혼으로, 영으로 사랑하니 끝없는 사랑이다.

24. 영들은 느낄 때, 육체가 극적으로 느끼듯이 느낀다. 아름다움, 좋은 감정, 즐거움, 기쁨, 행복 등을 육이 느끼는 것보다 수백 배 극적으로 느낀다.

25. 천국에서 사는 영들은 세상의 육같이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비만이 되는 일은 없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영은 세상의 육과 다르다. 아무리 먹어도 항상 그 모습이다.

26. 천국은 영체로서의 삶이다.

27. 세상은 육체로서의 삶이다.

28. 천국에는 두 종류의 천인들이 산다. 첫 번째는 육체를 거치지 않고 영체로만 창조된 천사들과 각종 천인들이 살고 있다. 두 번째는 휴거되어 간 영들이 살게 된다.

29. 천인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지체를 가지고 남녀가 구분되고, 얼굴을 보면 남녀가 구분된다.

<2013년 1월 18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말씀>

1. 자기 생활의 행위로 자기를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자기 생활의 행위로 자기 영을 좋은 영계나 나쁜 영계에 가게 만든다.

2.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나쁜 자의 영을 성자 주님이 좋은 영계에 데려다 놓으셔도 모르고 자기와 안 맞으니 거기서 존재하지 못하고 나온다.

3. 자기 육의 행위와 생활과 삶을 보고, 자기 영이 거하는 영의 세계가 어느 곳인지 알게 된다.
4. 이 세상에서 자기 육이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영계를 배우는 것이다.
5. <육신>은 눈에 보이는 제2의 영이다. <이 세상>도 눈에 보이는 제2의 육의 영계다.
6. 어려운 영계에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지상에서 자기 육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차원에 따라서 자기 영이 영계에서도 그 급에서 살게 된다. 자기 육의 마음과 행실을 보면 자기 영을 알 수 있다. 육을 보면 영을 안다.
7. 자기 육이 육계에서 사는 행위의 차원에 따라서 자기 영도 그 차원의 영계로 간다.
8. 자기 육이 온종일 온전하게 살면, 자기 영도 온전한 영계에 처한다.
9. 영계에 가서 자기 영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기 육의 삶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보면 된다.
10. 자기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가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엎어져 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 자기가 온전한 행위를 할 때까지 그 위치와 그 길에 머물게 된다.
11.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게으르거나,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즉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본래 가던 길을 가면 된다.
12. 사람들은 한 번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리듬이 깨진 상태로 오래간다. 리듬이 깨지면 바로 일어나서 리듬을 타야 된다. 시간이 늦었어도 더 늦지 않게 일어나서 가야 된다. 뺏긴 시간이 다음 시간까지 연장되면 안 된다.
13. 자기 육은 자기가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14. 자기가 넘어졌으면 어린아이가 벌떡 일어나듯 벌떡 일어나서 갈 길을 가야 된다.
15. 지치면 넘어진다. 피곤하면 넘어진다. 게을러도 넘어진다. 행하지 않아도 넘어진다.
16. 금 시간은 변하면 은 시간이 되고, 은 같은 시간도 기어오르면 금 같은 시간이 된다. 육의 세계에서 자기가 이리저리 운행할 수 있듯이, 영의 세계도 자기가 이리저리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운전대'는 자기 육의 마음과 행위에 있다.
17. 능력이 있는 자는 자기 마음과 행위가 넘어져도 일순간에 일으키고 간다.
18. <차>는 '운전대'로 조종하고, <사람>은 '자기 마음과 행위'로 조종한다.
19. <아는 자>는 떠나갔고, <모르는 자>는 문제를 안고 그 자리에서 살고 있다.
20. <새 역사>는 살아서 달리며 아는 자와 함께 떠나갔고, <기성>은 죽어서 무지자와 잠을 자고 있다.
21. 무지자에게는 무지가 자존심이다.
22. <아는 자>는 아니까 더 이상 기웃거릴 것 없이 말없이 떠나고, <모르는 자>는 큰소리치며 서로 귀청만 찢어지게 한다.
23. 지상에서 그런 자는 그 영이 영계에 가서도 그러하다.

24.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주인이며 기술자다. 자료는 성자 주님이 주신다. 성자 주님의 말씀대로 밤낮 자기를 만들어라! 잘못 만들었으면 부수고 다시 만들어라. '매일 자기를 만드는 삶'이다.
25. 자기를 빨리 만드는 자는 그 만든 것으로 험한 세상을 다스리면서 능히 잘 살아가게 된다. 고로 그 영도 영계에서 엄한 영의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게 된다.
26. 돌에 박힌 연철이 금같이 번쩍거리니,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좋아하며 희망으로 산다. 금에 대해 아는 전문가가 금이 아니라고 하니, 실망하며 결국 그 돌을 버렸다.
27.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해석하고, 연철과 같은 비진리를 희망으로 쥐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라고 하니, 결국은 버렸다.
28. 모르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욕이 휴거되려고 욕을 단장한다.
29. '욕'이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것이나, '지구'가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것이나 같은 이론이다.
30. '욕'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지구'가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만큼 힘들다.
31.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자기에게는 아는 지식이다.
32. 알 때, 그제야 비진리를 저주하고 자기의 무지를 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알고 떠난 자의 길을 찾아서 떠난다. 그러나 그때는 인생 해 그늘이다.
33. '무지'가 얼마나 인간을 쇠고랑으로 묶는지 아느냐.
34. 지구가 떠나가도록 자기 무지를 가지고 큰소리치며 살다가 점점 어둠과 고통의 지옥 문턱에 이르니, 어찌냐? 자기 무지를 두고, 누가 한탄해 줄 자가 없다. 자기가 한탄하고 슬피 울며 곡해야 된다.
35. 행악자들이 그렇게도 알고 사는 의인들을 괴롭히며 갇은 욕을 하고 막더니, 그 영들이 지옥 문턱에 앉아서 탄식하고 있다. 자기들이 악평했던 의인들이 볼까 봐 부끄러워서 눈을 감는다.
36. 행악자들의 영들이 지옥 문턱에 간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욕신들이 세상에서 살 때 입이 부르트도록 의인들을 악평하고 욕하고 몸부림치며 의인들을 괴롭히면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같이 되었다.
37. 의인들은 그 욕신들이 세상에서 살 때 몸부림쳐 혀가 닳도록 진리의 말씀을 외치며 삶으로 그 영들이 천국 문턱에 가서 희망에 차서 천국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38. 성약 말씀을 큰소리쳐 외치니, 구시대 어두운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
39. 새 시대 새 말씀이 인생 체질을 녹여 버렸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40. 무지자들은 무지를 큰소리쳐 외침으로 무지의 옛 하늘과 옛 땅이 그들을 덮어 버렸고, 스스로 음부와 지옥을 만들고서 지하 깊은 곳에서 살아간다.
41. 차원 높여 날아와 새 시대에서 사는 자들은 천국을 대망하고 산다.
42. '인생의 해'도 '시대의 해'도 넘어갔지만 알지는 못하지, 길은 많지... 그렇게도 큰소리를 치면서 아는 자를 무시하고 가더니만, 빛 가운데서 쳐다보니 잘 보인다. 빛 쪽에서 너희들을 보고 있는 줄은 모를 것이다.

43. 무지자들이 그렇게도 갇은 악평을 하며 괴롭게 할 적에, 오직 하나님과 성자 주님만 쳐다보면서 그 갇은 모욕 다 들으며 모진 환난과 핍박을 다 참고 왔더니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지난날에 서로 위로하며 한뜻을 가지고 오던 자들의 얼굴에 사연들이 쌓여 새 빛이 나고, 기뻐하며 반가워한다.
44. 때 지나니 갈림길에서 갈려 가서, 음부와 지옥으로 간 자들을 이제는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다.
45. 아는 자가 지난날에 그렇게도 큰소리치며 따라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 모두 맞지 않느냐.
46. 성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기어이 새 날을 만들지 않았느냐.
47.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현실이 분명한 것을 깨닫고, 더욱 굳건하여 미련 없이 몸도 마음도 날려서 미래의 날을 살아가라! (아멘!)
48. 때가 되면 <무지>는 썩어서 눈과 같이 녹아서 땅으로 흘러가고, <진리>는 깨끗하게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49. <무지>는 음부와 지옥의 주소이며 길이다.
50. 만왕의 왕 성자 주님 앞에서 큰소리치며, 그 말씀을 웃기게 보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불신하고, 무지의 채찍질을 하던 자들의 그 만행은 만 가지 악행이었다. 수천 년이 흘렀어도 그 신앙의 자손들이 이 시대에 선조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
51. 조상이 화전민이니, 그 자손들도 2000년이 넘도록 무슨 벼슬이나 하는 듯 화전 생활을 하며 살고 있다.
52. 조상이 산적이니, 그 자손들도 그 전통을 이어 받아서 2000년이 넘도록 무슨 벼슬이나 되는 듯 산적 짓을 하고 있다. / 새 시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마치 원시인 마을을 구경하고 관광하듯 한다. 그러나 무지자들은 천 리 길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부러워하며 구경하는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면서 산다. / 모두 무지를 파헤쳐 주어라! 행여 거기서 시대의 눈을 뜨고 나오는 자가 있을까 하노라.
53. 시대의 눈을 뜬 자들아! 이 시대에 소경들이 판을 친다고 해서 피하고 숨어 살지 말아라! (아멘!)
54. 길 가다가 잠깐만 눈을 감아도 부딪히고 넘어질까 봐 불안하고 두려운데, 시대의 소경들은 한 시대를 소경으로 살아 놓고서 자기 인생의 해가 지도록 자기만족으로 살아간다.
55. 겸손히 배우고 안다면 그 자리에서 눈을 뜨건만, 네가 눈을 뜬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네 운명이라 생각하느냐.
56. 시대의 눈을 뜬 자들아! 귀찮아도 시간을 내서 소경들을 가르쳐 주어라. 성자 주님이 오셔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앓은뱅이가 걷게 해 준다고 전해 주어라. 그들을 이 역사로 데리고 와서, 때가 되어 선생이 나가면 그때는 지난날처럼 같이 보고 듣고 뛰게 해 주어라.
57. 인생이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심령의 눈을 뜨고 아는 눈을 떠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무덤에 내려갔을지라도 무덤에서 기어 나온다.
58. 사리의 눈을 떠라. 진리의 눈을 떠라. 이치의 눈을 떠라.
59. 시대의 눈을 뚫어도 심령의 눈을 떠야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를 존재시킨다.
60.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주변과 환경에서 마음의 눈을 떠라. 그래야 할 일이 보인다. 마음의 눈을 떠서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고 즉시 행하기다.

61. 자기가 눈을 뗐는지 보아라. 할 일을 못 하는 자는 눈을 못 뜬 자다.
62.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는 눈을 뜬 자다. 눈을 뜬 자에게는 할 일이 보인다.
63. 잠자는 자는 눈을 감아서 할 일이 안 보이듯, 마음과 생각의 눈을 감은 소경은 할 일이 안 보인다.
64. 마음의 눈을 뜨면 할 일이 많이 보인다. 보고 즉시 실천이다!
65. 신앙만으로는 할 일을 못 한다. 또 발을 잘못 디더서 넘어진다. 마음의 소경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 마음의 눈을 떠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발을 잘못 디디지 않는다.
66. 마음의 눈을 뜨면 넘어지는 것도 알고, 일어나는 것도 안다.
67. 눈을 뜬 자들은 소경들을 인도하며 눈을 뜨게 해 주어라. 그래야 눈을 뜬 자로서 더욱 보람차다.
68. 성경을 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기다리다가 눈 뜨기를 간구하여 눈을 뜨게 되었다. / 너희도 그리하여라. 심령의 소경, 마음의 소경, 삶의 소경들아! 성자 주께서 사명자와 함께 네 앞을 지나가는 이때에 눈을 뜨게 해 달라고 간구하여 꼭 눈을 떠라! 온전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심령의 소경인지, 지식의 소경인지, 시대의 소경인지 알게 된다.
69. 자기가 소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눈 뜬 자가 말해 줘야 알게 된다.
70. (소경이 누구냐?)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악인은 선의 소경이다. 악평자는 옳은 것의 소경이다.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소경이다.
71. 소경은 소경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경들이 꼭 가는 곳이 있고, 소경들에게 꼭 보이는 곳이 있다. 그 날에는 그곳에 가서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눈을 뜨게 된다. 그제야 “내가 소경이 되어 이곳에 영원히 빠졌구나!” 하고 알게 된다.
72. 주는 소경과 함께 살지 않으신다. 고침을 받아야 같이 사신다.
73. 신약시대 때 나사렛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믿고 따른 자들은 고침을 받고 주와 같이 먹고 즐기면서 살았다. 그 자손들도 아벨의 자손들이 되었다. /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소경이 되어 살았고, 그 자손들도 소경이 되어 지금도 소경으로 살고 있다.
74. 소경 자식은 불쌍하다.
75. <육>은 팔방미인인데, <심령>이 소경이다.
76. <육>이 팔방미인이라도 <심령>이 소경이면, 그 미(美)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니 정말 안타깝다.
77. 육의 눈을 뜬 자는 육의 것을 수십만 가지 보듯이,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마음’으로 육의 것부터 영의 것까지 수억만 가지를 보고 느낀다.
78. 마음의 눈을 뜬 자는 마음의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자다. 마음의 눈을 뜬 자들아! 소경들을 눈뜨게 해 주어라. 주께서 “내가 함께하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자.” 하신다. 소경들이 눈뜨면 주님이 좋아하시고 같이 행하신다.
79. 이 시대에 심령의 소경들이 너무 많아서 가다가 부딪힌다. 고로 눈을 뜨고도 제대로 갈 길을 못 간다.

80. 전에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니, 심령의 소경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알았다.

81. ‘육의 눈’이 소경인 자보다 ‘마음의 눈’이 소경인 자가 훨씬 더 답답하다.

82. 마음의 눈을 못 뜬 자는 육의 세계에서부터 영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소경이다. 고로 두 세상을 모두 못 보는 불쌍한 소경이다.

83. 눈을 못 뜬 자는 금 같은 시간에 허송세월하고, 할 일을 못 하고, 가치 없이 다른 데 시간을 쓴다.

84. 자기 나름대로 개성대로 하나하나 눈을 떠야 된다.

85.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만사를 다 보더라도 그 가치에 그 이상에 한 가지, 한 가지씩 눈을 떠야 된다. / 가령 육의 눈을 떠서 돌을 보더라도 수석, 자연석, 괴석에 눈을 못 뜨면 몇 억짜리 돌이 눈앞에 있어도 못 주워 간다. / 육의 눈을 떠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의 눈을 제대로 떠야 인간 보화임을 알고 대하여 유익이 된다. / 이와 같이 시대의 눈을 떴더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의 눈’을 떠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 보화도 제대로 보고 값비싼 수석처럼 찾아서 쓰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과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여 얻게 된다.

86. <새>도 눈은 일찍 떴는데 아직 몸과 날개가 안 커서 날지 못하니, 클 때까지 어미의 도움을 받고 커야 된다. <들짐승>도 눈은 일찍 떴는데 몸이 안 커서 활동하지 못하니, 클 때까지 어미의 도움을 받고 커야 된다. / <사람>도 눈은 일찍 떴는데 아직 몸과 정신이 약해서 행동하지 못하니, 클 때까지 부모와 주변의 도움을 받고 커야 된다.

87. 시대의 눈과 심령의 눈은 일찍 떴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여 제자리다. 고로 넘어졌으면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걸어가면서 성장해야 된다. 낡은 자가 길러 주고, 먼저 큰 자들이 잡아 주고 끌어 주고 키워 줘야 된다. 그래야 독수리처럼 상공을 날고, 치타처럼 번개같이 지상을 뛴다. 그 때 같이 날게 되니 기른 자도 보람을 얻고, 지난날의 고생을 벗어나게 된다.

88. 넘어져도 순간 일어나면 그 차를 타고 가지만, 늦게 일어나면 그 차는 놓친다.

89. 나무도 커야 품이 나듯이 인생도 그러하다.

90. 세상에서 ‘빛’이 제일 빠르다.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으니, 바로 ‘영’이다.

91. <영>은 ‘빛’보다 빠르다. 하지만 빠른 영이라도 가만히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거북이’보다 느리다.

92.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갈 때 ‘빛’으로 가면 150억 년이 걸린다. ‘영’으로 가면 20분 걸린다. 고로 영은 빛보다 400억만 배 더 빠르다.

93. ‘빛’은 시공 속에 있고, ‘영’은 시공을 벗어나서 존재하니 영의 빠르기는 계산할 수도 없다.

94. 이같이 빠른 영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고로 누구든지 시대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뜨고, 성자가 보낸 자에 대해서 눈을 떠서 시대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 성자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원받음으로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어서 그 귀한 영을 제대로 써야 된다. 자기 육신은 자기 영을 이상적으로 만드는데 존재다. 자기 육이 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영을 만든다. 육신의 행위로 영을 다 만들어 놓으면, 자기 영을 귀하고 위대하게 쓰게 된다.

95. 영보다 더 빠른 것이 있으니, 곧 ‘영의 마음과 생각과 파장’이다. 육계에서는 ‘육의 마음과 생각과 파장’이다.

96.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면 일순간에 번뜩 한다.

97. 육신이 영의 마음에 따라서 행하면 10년, 100년 앞지르게 된다.

98. 한 시대에서 살아도 진리를 깨닫는 대로 10년, 30년, 50년 앞질러서 깨닫고 실천한다.

<2013년 1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회의 때'에 주어진 삶으로 인해 그 날 너의 방향이 결정된다.

2. 100개의 조개 속에 한 개의 진주가 들어 있다. 한 개의 진주를 발견하려면 100개의 조개를 다 까 봐야 된다. 90개만 까 보고 마는 자, 99개만 까 보고 마는 자도 있다. 100% 하는 자만 얻는다.

3. 자기 행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대로 간다. 세상에서는 그대로 가지만, 그 혼과 영은 잘못된 대로 형성된다. 사과에 흠이 있으면 A급에서 가려내듯이, 흠이 있는 혼과 영은 쪼개짐을 받아서 흠 있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4. 자기 잘못을 깨닫는 것이 그리 크다. 말쑥으로 늘 이야기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본다.

5. 의사가 진찰할 때 죽음에 이르는 병을 못 찾아내면, 자기 몸이니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느껴서 찾아내야 된다.

6. 속으로는 커도 육신은 조금만 느낀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은 커도 육신은 조금만 느낀다.

7. 육체의 행위 그대로 혼체의 모습에 반영되고, 육체의 행위 그대로 영의 형체가 갖춰진다.

8. 그릇이 생긴 형체대로 물을 담아서 얼리면, 그 그릇의 형상대로 얼음이 형성된다. 그릇은 육과 같다. 그 안에 담아서 얼린 얼음은 영과 같다. 영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여라.

9. 자기 혼과 영의 형체가 어떤지는 자기 육을 보면 알 수 있다.

10. 얼마든지 자기가 몸부림쳐서 자기를 만들 수 있다. 월명동을 더 빛내려고 돌 한 개를 더 세우고 돌 한 줄을 더 세웠다. 고로 전체가 빛이 났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빛내려면, 차원 높게 한 가지, 한 가지를 꼭 더 해야 된다. 혼체를 통해서 보면 자기 육의 행실이 여실히 표가 난다.

11. 지구는 여자와 같고, 태양은 남자와 같다.

12.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13.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보아라.

14. 어떤 입장을 두고 설명했는지 보아라. 먼저 어떤 의미에서 그같이 말했는지 알아야 된다.

15. 어디에 목적을 두고 설명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16. 설명하는 대로 좌우된다.

17.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목적을 두고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대로 좌우된다.

18. 어떤 뜻에서 그같이 말했는지 파악하여라. 그래야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알게 된다.

19. 말만 듣고는 잘 모른다. 어떤 뜻에서 그같이 말했느냐를 알아야 근본의 답을 알게 된다.
20.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지구는 여자와 같고, 태양은 남자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면 “맞지 않는 말이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 어떤 뜻과 목적을 두고 말했는지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다.
21.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이 태어나게 한다. 남자는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상대적 조건을 준다. ‘지구’는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세계이고, ‘태양’은 빛으로 조건을 발생시키는 것임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한 말이다.
22. 지상의 인간은 여자와 같고, 삼위일체는 남자와 같다. 삼위일체는 인간을 통해서 행하시며 구원 역사를 낳고, 하늘의 생명들을 탄생시킨다. 그런 뜻에서 지상의 인간은 여자와 같고, 삼위일체는 남자와 같다고 말했다.
23. “너는 못 한다. 너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면, 어떤 뜻에서 그같이 말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실상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를 무시하고 못 한다, 안 된다고 하는 말인 줄 알고 기분 나빠하며 화를 냈다. 그 말을 한 자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말하기를 “너는 유능하지만 거기에는 안 맞다. 그 팀은 소년 팀이고, 너는 청년이니 청년 팀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했다. 고로 말을 잘해 줘야 된다.
24. 성약 말씀을 들은 자들만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산다. 신약 자녀권 구원은 신약 말씀을 들은 자들만 받았다. 그런데 구약 말씀만 듣고 죽은 자들의 영도 천국에 가게 된다.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등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천국은 구약 주관권 천국으로서 구원 급도 다르고 천국의 차원도 다르다. 구원받은 자는 더 좋은 시대가 오면 시대에 따라 더 좋게 될 수도 있다.
25. 구원받지 못한 자는 좋은 시대가 와도 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26.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등 구약 인물들은 구약의 구원길을 거쳐서 구원받고, 그 영들은 구약에 해당되는 천국에 간다. 옛날 선조들은 옛날식 역사를 이루며 구원을 받았고, 현대인들은 현대식 역사를 이루며 구원을 받는다.
27. 영계에도 육계에도 각각 거하는 곳의 차원이 다르다. 고로 거하는 곳의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느 시대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누구를 따르며, 얼마나 행하면서 사는지에 따라서 거하는 곳이 달라지고, 그 차원이 달라진다.
28. 성약역사가 말씀도 최고로 발달되었다. 성약역사로 온 자들은 성자의 애인이며 신부라서 거의 할 말을 다 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역사라서 과일나무의 마지막에 과일이 열리듯, 역사의 최후에 애인 열매, 신부 열매로 매듭짓는 천 년 역사다.
29. 과거 역사와 현재 역사는 비교가 안 된다. 과거 역사는 마차라면, 현재 역사는 승용차다. 과거 역사는 열차라면, 현재 역사는 비행기다.
30. 옛날식 구원을 이루는 자들도 그 영이 생명권에 존재한다. 그러나 그 영들이 같은 천국에 가도 구원 급에 해당되는 차원대로 각각 거하게 된다. 쪼개서 보면 형제 세계와 신부 세계는 따로 존재한다. 신부로 변화된 영들은 여자라도 남자라도 항상 삼위일체 앞에 신부같이 통한다. 이것이 천국의 성약성 세계다.

<2013년 1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아주 중요

1. 성자 주는 육보다 영을 보고 택하신다.
2. 육은 멋있고 미인인데, 육신이 자기 영을 개발하지 않아서 빛이 안 나고 꼴 보이는 영들이 많다.
3. ‘영을 보고 택하지, 육을 보고 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비유를 들어 말하면 ‘사람을 보고 택하지, 그 사람의 집이

아름답다고 해서 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육을 집으로 비유했고, 영을 그 집에 사는 사람으로 비유했다.

4. 어떤 남자가 예쁘고 멋진 여자를 찾는 것을 목적하고 한 마을에 갔다. 그러면 부모도 안 보고, 가문도 안 보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도 안 보고, 그 집 식구들도 안 본다. 여자만 본다. 그리고 여자만 데려다가 같이 산다. 집을 가져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성자 주는 오직 ‘영의 인물과 마음’만 보신다. 그 영의 육은 마치 집과 같아서 그것은 별로 안 보신다. 육은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에서 영을 거둬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육이 필요할 뿐이다.

5.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시대 사명자를 제대로 알고, 성자를 제대로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위의 공적에 따라서 자기 영의 형체가 예쁘고 멋있고 온전하게 변화되고 형성된다.

6. 육같이 영도 개성으로 존재하지만, 영마다 수준과 차원의 차이가 많다. 잘 변화되어 빛나고 멋있는 영도 있고, 별로인 영도 있다.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그 영의 형체가 다양각색이다.

7. 혼체의 모습과 영체의 모습은 차이가 많다. 혼체는 육체에 속해 있기에 그 모습이 보통이다. 그러나 영체는 자기 육체와 혼체의 공적을 다 가지고 있기에 더 빛이 나고, 그 변화된 형상도 육과 혼과는 많이 다르다.

8. 세상에서는 거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구원받고 사는 자들도 거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고 자기 영이 영의 세상에 갔을 때 조금씩 알고 배운다.

9. 사람이 자기 몸 전체를 두고서 손가락만큼 알다가 가듯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0. 가끔 ‘부모의 죽음’을 생각하던 자들이 어느새 세월이 가서 가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

11. 세상 시간과 때는 한 시대를 살다 보면 해가 서산에 진다. 시간과 때가 몇 번 지나면 소년기에서 청년기가 되고, 청년기에서 중년기가 되고, 중년기에서 노년기가 된다. 인생 일생을 하루해로 축소해서 보면, 일생이 느껴진다.

12.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90바퀴를 돌면, 인생 누구든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인생을 살다가 일생이 끝난다. 지구가 얼마나 빨리 달리면서 도는지 아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달리면서 돈다. 고로 빨리 뛰어라! 늡기 전에 뛰어라! 이것을 아는 것이 크다.

13. 하루 같은 인생 일생이다. 인생은 순간 간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는 시간밖에 없다.

<2013년 1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아주 중요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새 역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자들이 천국의 것을 발견한다.

2. 제일 먼저 간 자가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간다.

3. 어느 시대든지 제일 먼저 하늘의 새 역사를 발견한 자들이 그 시대에 제일 이상적인 역사를 차지한다.

4. 제일 먼저 간 자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제일 좋은 사람을 차지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5. 이 시대도 제일 먼저 성자의 오심을 발견한 자가 제일 좋고 이상적인 시대 가나안 복지 역사를 차지하고 간다.

6. 경주하는 자들도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자가 제일 좋은 ‘금’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도착한 자는 ‘은’을 차지한다.

7. 시대를 알고 제일 먼저 쫓는 자들이 그 시대 천국의 역사를 차지한다.

8. 신약역사 때도 성자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안 자들이 그 시대에 해당되는 천국을 차지하고 새 역사를 펴 나갔다.

9. 이 시대도 성자가 시대 새 역사인 재림의 역사를 시작하여 1000년 동안 지상 혼인 잔치 역사를 펴는 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자들이 이 시대 천국의 역사를 펴 나간다.

10. 7~8월에 제일 먼저 산에 가서 머루, 다래, 포도 등 각종 열매를 발견한 자가 제일 좋은 것을 따 먹는다. 그다음에 간 자들이 그다음 좋은 열매의 주인공이 된다. / 이와 같이 이 시대도 성자의 오심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맞은 섭리사가 새 시대를 쥐고 주인공이 되어 역사를 펴 나간다.

11. 하나님의 새 역사는 34년 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새 역사로 온 사람들은 이제야 새 역사를 시작했다. 이는 34년 전에 시작한 새 역사에서 제3의 부활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때가 지금 이때이기 때문이다.

12. <부활의 역사>는 크게 나누면 구약 1차 부활 신약 2차 부활 성약 3차 부활이다.

13. 성약 3차 부활 역사에서도 3단계 부활로 나눈다. <1차 부활기>는 성약 역사를 시작한 1978년부터 21년 동안 공적 역사를 편 기간이다. <2차 부활기>는 1999년부터 3년 동안 무덤 기간을 보내고, 2012년까지 총 14년의 조건을 다 세운 기간이다. <3차 부활기>는 세계 역사와 함께 구시대 신약역사가 끝나면서 2013년부터 시작되는 부활과 독립의 때다. <3차 부활기>는 구시대와 무덤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석방되는 부활의 때다. <재림과 휴거의 역사>도 3차 부활기 때 일어난다.

14. <성약역사 2차 부활기> 때 ‘성자 본체와 분체의 인봉’을 밝혔다. <성약역사 3차 부활기> 때는 3차선을 타고 가면서, 영을 완전히 준비시켜 성자의 재림과 함께 ‘영적 휴거’가 이루어진다.

15. <성약역사 2차 부활기>까지는 ‘육적 휴거’를 중심하여 육적 휴거가 이루어졌다. ‘육적 휴거’는 성약역사 1000년 동안 계속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이 시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영적 휴거’는 1000년 성약역사 기간 중에 단 한 번뿐이다. ‘영적 휴거’는 분체가 살아 있을 때 한다. 그 후 1000년 성약역사 기간 안에 땅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면서 사는 자들의 영들은 ‘영적 휴거’를 맞지 못하고, 휴거된 주관권 안에서만 산다.

16. 신약 기간 2000년 동안 재림이 없다가 2000년 기다린 역사의 터전위에 한 번 재림이 있다. 먼저 새 역사에서 분체를 중심하여 성자를 맞고 ‘육적 휴거’를 시켰다. 새로운 말씀을 받고 새 역사에서 ‘육적 휴거’를 이루며 산 것이다. 그 터전 위에 성자 본체를 맞고 ‘영적 휴거’를 한다. 결혼식은 두 번이 없다. 한 번이다. 이와 같이 재림과 휴거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영적 휴거는 한 번뿐이다.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잠자다가 눈은 떴는데 잘 안 일어나지는 것은 잠자는 상태에서는 뇌가 10분의 1도 작용을 못 하기 때문이다. 고로 벌떡 안 일어나지고 다시 자게 된다. 고로 10분의 1의 생각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생각이 10분의 1정도밖에 없으니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고로 몸을 즉시 일으켜 일어나야 된다.

2. 조금 더 잠을 자도 순간이다. 그 순간에 1시간, 2시간이 후다닥 가 버린다. 그 순간 조금 잔다고 해서 별 유익이 없다.

3. 육보다 혼과 영이 더 먼저 안다. 혼이 먼저 부딪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육이 알게 된다.

4. 육은 몸에 부딪히면 알고, 혼은 눈처럼 보면 안다. 고로 꿈에 혼이 먼저 보고 행한다. 육은 뒤늦게 육적인 차원에서 행한다.

5. 섭리사에서도 혼 같은 선생이 먼저 알고 겪는다. 그리고 육 같은 따르는 자들이 겪게 된다.
6. 선지자들도 앞에서 먼저 가니, 알고 겪고 외쳐 준다. 뒤에 오는 자들은 그 말을 듣고 알고 예비하고 따라오게 된다.
7.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한 줄로 서서 간다 하자. 맨 앞사람이 먼저 내를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각종 짐승이나 낙타를 보고 겪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뒤따라오는 자들이 겪게 된다. 이와 같이 혼이 먼저 알고 겪은 다음에 육이 겪게 된다.
8. 혼이 겪을 때 먼저 알게 된다. 이에 따라 육이 확실히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9. 어느 때는 낮에 육이 먼저 생활 속에서 겪고, 밤에 잠잘 때 혼이 그 상황을 꿈으로 겪게 된다.
10. 육계에서는 육이 먼저 겪고, 영계에서는 혼이 먼저 겪는다.
11. 혼이 겪는 배경과 처지와, 육이 겪는 배경과 처지는 다르다. 이는 혼이 보는 영의 세계와 육이 보는 육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이 혼 같은 지도자가 겪는 것과, 육 같은 따르는 자들이 겪는 것이 다르다. 혼 같은 지도자는 영적으로 보고, 육 같은 따르는 자들은 육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다. 영으로 사는 자는 영계에 사는 자다.
12. 기도하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서 혼으로 보기 때문에 먼저 알고 겪는 것이다.
13. 영의 세계에서는 항상 지상의 육의 세계의 것들을 먼저 본다.
14. 지상에서도 보다 영적인 세계의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육적인 세계의 것이 이루어진다. 먼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가 행하고, 그다음에 육에 속한 자가 행하게 된다.
15. 어느 때는 육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신령한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6. 육은 혼과 영에 비하면 흐리멍덩하다. 혼은 육보다 확실하다. 인간의 육체에 속한 것은 모두 뇌에 따라 작용하니, 물질이라서 청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육이 피곤하면 뇌도 피곤하여 흐리멍덩해지고, 육이 잠을 자면 뇌도 흐리멍덩해지고, 육이 어떤 것에 집중하면 뇌가 그것에만 빠져 다른 것에는 생각이 흐려진다. 고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면 확실하다.
17. 육신은 술만 마셔도 뇌에 지장이 생겨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영향을 받고 혼미해진다. 육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은 미약하고 연약하다.
18. 육신은 육의 한계선에서 끝난다. 혼과 영은 육보다 무한하다. 고로 육신을 혼적으로 영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19. 새벽에 일어나려 해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려 하니 뇌의 기능도 잠을 자고 있었기에 생각이 흐리멍덩하여 잘 안 일어나진다. 그때 즉시 뇌에 자극을 줘야 된다. 열 손가락으로 머리를 아프게 꺾꺾 누르거나, 일어날 때까지 머리를 때려야 된다. 또한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야 된다.
20. 사람이 쉬다가 일을 하려면 일손이 잘 안 잡힌다. 이와 같이 잠을 잔 것은 쉰 것이다. 고로 눈을 떴어도 아직 뇌가 잠에서 깨지 않은 상태라서 마음대로 안 일어나진다. 마음 역시 아직 잠에서 안 깬기에 피곤하다. 사탄은 이를 알고 공격한다. 고로 눈을 떴으면, 별떡 일어나 동작을 하며 행해야 뇌에도 정신에도 시동이 걸린다.

<2013년 1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21. 태양이 등불이 되어 밝혀 주고 따뜻하게 해 주니, 태양을 만드신 신께 감사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가볍게 “태양아,

고맙다. 나는 네가 좋다.” 했다. 그러다가 절도 하게 되고,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제사도 지내게 되고, 숭배하게 되었다. 결국 태양을 신격화하여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 결국 미련하게 하여 미련한 자가 되었다.

22. 산과 나무를 보고 경치가 좋다면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산과 나무 앞에 절하며 신같이 섬긴다. 만물을 신이라고 하며 섬긴다. 창조자를 섬기지 않는다. 욕적이니 보이는 것만 중심한다. 월명동에 와서 돌과 바위와 나무만 보고 좋아하는 자와 같다. 만물을 만드시고 구상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여라.

23. 산과 나무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산에 나무를 심고 물을 흐르게 한 자에게 감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산 주인이 산에 못 다니게 막아 버린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24. 심부름하는 자를 주인시하기 쉽다.

25. 그 집 아내를 남편으로 보지 말아라.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보아라.

26.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격의 섬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니, 아이가 젖꼭지만 사랑한다. 그러면 엄마가 젖을 안 준다.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27.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며 사과, 배, 돼지고기, 소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면서 감사하다고 한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섬긴다. 이는 다신교적 방법으로서 원시적이다. 종교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잘못 인식하고 대하면, 따르는 자들도 똑같은 꼴이 된다.

28. 보낸 자는 주인이요, 보냄을 받은 자는 그의 지체다.

29.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그 분체를 보내시고, 분체는 그의 분체와 지체들을 보낸다. 항상 이것을 알고 행하여라.

30. 분체는 근본자 본체의 몸같이 사용되는 자다. 시대적으로 볼 때 구약 때는 종 같은 자, 신약 때는 자녀 같은 자, 성약 때는 신부가 되는 자를 택해서 사용한다. 본체와 분체는 쪼개면 둘이다. 합치면 하나다.

31. 본체와 분체는 항상 교통한다. 고로 분체는 본체와 늘 개통되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통해야 된다.

32. 선생도 분체라서 성자 본체와 매일 통하여 그 생각을 전달받는다.

33. 분체의 분체와 지체들도 분체와 늘 통해야 능력이 나가고, 힘이 나가고, 말씀이 나가고, 영적 능력이 나간다. / 또한 분체의 분체 되는 자에게 전체가 받아야 될 것을 준다. 그것을 들어야 능력을 받고 힘을 받는다. 들은 것이 있어야 내놓을 것이 있다.

34. 분체와 일체 되려 하지 않고 성자와만 일체 되려고 하면, 너무 높아서 만나지도 못하고 수시로 통하지도 못한다. / 이와 같이 분체의 분체와 일체 되려 하지 않고 선생과 성자 주님과만 일체 되려고 하면, 너무 높아서 만나지도 못하고 수시로 통하지도 못한다.

35. 보낸 자를 통해서 보다 위에 있는 본체와 통하여라.

36. 신약 때 하나님과 성자의 분체가 되는 나사렛 예수와 안 통하고 하나님과만 통한 유대 종교는 구약 원시인 종교가 되었다. 신약권 시대가 왔는데도 하나님과만 통하려 하며 높은 척했으나, 결국 시대 주인인 분체와 통하지 못함으로 구약 종교가 되어서 하늘 앞에 제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원시인 종교가 되어 이방 종교와 하나 되고 말았다.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으면 그같이 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 또한 섭리사 안에서도 목회자들이 선생이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으면 원시인 지도자가 되고, 그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는 원시인 교회가 된다. 지금도 그런 자들이 많다. 선생과만 통하려 한다. 차원이 낮은데 통해지겠느냐? 손가락같이 서열이다. 질서다. 인간에게도 서열이 있다. 첫 번째, 영 - 두 번

째, 혼 세 번째, 마음·정신·생각 네 번째, 육이다. 서열을 바꿔서 통해 보아라. 평생 안 통해진다. 육이 혼과 통하지 않고 영과 통해 보아라. 안 통해진다. 먼저는 육이 마음을 통해서 혼과 통하고, 혼을 통해서 영과 통하기다. 고향 사람이 고향을 떠난 타지에 있는 자와 소리 질러 통하려 한다. 평생 통해지겠느냐. 전화로 통하기다. 이와 같이 영계로 통하지 않고서는 울고 짜도 안 통한다.

37. 각 계통적으로 분체와 통하여라. 그래야 본체와 통한다.

38.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조금만 섬기고 사랑한다. 조금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고 행해야 우리 육도 영도 제대로 만들어진다.

39. 그림을 그리는 만큼 그리는 것의 형상이 완성되듯이, 하나님과 성자를 알고 행하는 만큼만 자기 혼과 영의 형상이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2013년 1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영적인 것>은 육적으로 전달될 때는 희미하게 전달되고 깨달아진다. 혼적으로 전달될 때 확실하게 전달되고 깨달아진다. 영적으로 전달될 때 더욱 확실하게 전달되고 깨달아진다.

2.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전달될 때 확실하게 깨달아진다.

3. 전달받을 때 자신이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크다.

4. 전달하는 자도 얼마나 준비하고 간절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5. 계시는 전달하는 자와 전달받는 자가 일체 돼야 받는다.

6. 계시는 전달하는 자의 목적을 위해서 받는 자가 준비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준다.

7. 복음을 전해 주는 것도 하나님과 성자의 계시를 전해 주는 것이다.

8. 복음을 전해 주는 자들은 이 시대 성자의 말씀 계시를 전해 주는 사역자들이다.

9. 하나님과 성자께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전해 줘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전해 주는 자가 확실한 전달자다.

10. 주의 말도, 글도 다 계시다.

11. 계시를 받으려면 주와 소통해야 되고 대화해야 된다.

12. 계시는 각자의 개성대로 주는데, 그 차원이 각각 다르다.

13. 성자는 개인에게는 큰 비밀의 계시는 안 주시고, 그 여건을 통해서 개인을 키우신다.

14. 개인의 비밀의 계시는 개인에게만 준다.

15. 하늘의 비밀을 미리 알려 주면, 본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6. 성자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셨어도 자기도 항상 기도하면서 함께해야 된다.

17. 어렸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크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18. 누구든지 어렸을 때는 구부리고 꺾어서 반듯하게 키울 수 있지만, 클수록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자신도, 상대도 그러하다.
19. 나무도 어렸을 때부터 수형을 잡아야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인간도 어렸을 때부터 다스려야 인간 작품을 만들 수 있다.
20. 새벽은 하루 중에서 어렸을 때와 같은 때다.
21. 새벽 시간 때 마음과 몸을 주님의 뜻대로 잡고 다스려 놓은 후에 낮 시간에 키우는 것이다.
22. 구상이다! 하나님과 성자의 뜻대로의 구상이 최고의 구상이다.
23. 자기 육적 구상은 자기가 쓰기에 합당할 뿐이다.
24. 섭리 사람들은 섭리사를 따라오면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내가 믿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면 어떡하지?” 해서 다. 하지만 성자 주님은 “믿을까?” 하고 걱정하셨다.
25. 기도를 깊이 하면, 주님은 다 깨우쳐 주신다.
26. 하나님의 뜻은 집을 짓듯이 갈수록 그 모양이 더욱 확실하게 밝혀진다.
27. 끝에 가면 완성된 것을 보게 된다.
28. 경주하는 자가 과정 중에는 마음을 놓을 수 없으나, 다 끝난 다음에는 마음을 놓는다.
29. 과정 중에 사명에서 탈락되고 사명이 끝나는 사명자들이 세상에 많았다. 이는 과정 중에 세상 명예와 물질과 자기 중심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30.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못 한다. 한계가 있다. 애인은 상대가 자신의 몸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한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구원역사도 그러하다.
31. 신약역사는 자녀권 역사로서 자녀권으로는 부모의 것이지만, 애인권으로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 자녀는 부모가 사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랑으로 취하기 때문이다.
32. 성약역사는 애인권 역사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상대를 자기 몸같이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끝장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사탄도 완전히 끝장낸다.
33. 성약역사는 하늘도 인간을 자기 것으로 아주 취하고, 사탄도 인간을 자기 것으로 아주 취하는 역사다.
34. 신약역사 때는 하나님 편도 인간을 자녀급 차원으로 대하고 역사했고, 사탄도 그리 대했다. 그러나 성약역사 때는 하나님 편도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며 역사하고, 사탄 편도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다. 고로 반드시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사탄을 멸해야 된다.
35. 시대에 따라서 하늘 의의 편도, 사탄 악의 편도 <사랑의 목적>을 두고 다투었다.
36. 성약 때가 되면 의의 편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악의 편은 지옥으로 데려간다.
37. 사람은 ‘말’로 서로 통한다. 그러나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간과 말이 안 통하니 그 분체를 통해서나 지체들

을 통해서 할 말을 전달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할 말을 전달하신다.

<2013년 1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누구든지 자기를 버려야 순수하다. 순하다.

2. 목적은 과정에 있다.

3. 목적지에 갔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이다.

4.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과정 중에 이미 목적을 이행하고 있다.

5. 목적을 두고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6. 가령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려고 목적을 두었을 때부터 그 마음에 이미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그 남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7. 어떤 사람을 땅에서 육적 휴거를 시키는 때부터 주님이 휴거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다. 아직 아무도 육신 휴거를 시키지 않았더라도 성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명자를 키우시며, 사명자가 홀로 세상에 나타났을 때부터 휴거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목적은 과정부터다.

8. 자기 자신은 자기가 육적 휴거 된 날부터 휴거가 시작됐다고 보지만, 모든 것은 주인공이신 성자 주님을 기점으로 뒤야 된다. / 가령 한 단체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 나라에 왔다 하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다 만나는 데 30년이 걸렸다. 일찍 만난 자는 그가 온 지 30년 됐다 하고, 늦게 만난 자는 그가 온 지 일주일 됐다 하고, 방금 전에 만난 자는 그가 방금 전에 왔다고 한다. 저마다 자기가 맞은 시간이 다르니, 시간대의 차이와 연대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 입장에서 그가 그 나라에 왔을 때를 표준으로 해야 된다.

9. 육적 휴거 역사의 시작도 첫째, 성자 주님께서 세상에 육적 휴거 역사를 이루러 오신 때를 기점으로 뒤야 한다. 둘째, 성자 주께서 그 몸으로 쓰는 자가 나타났을 때를 표준으로 두고 역사를 계산해야 된다.

10.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육적 휴거 시간>은 각각 다르다. 이는 각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성자 주와 그 분체를 맞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11. 땅에서 육이 휴거를 이루면서 그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키며 준비하고 있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재림하시면 준비된 영들이 동시에 하늘로 휴거된다. (그러나 세상의 한 날이 아니라, 한 기간이다.) * 참고 : ‘영 휴거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상의 한 날이 아니라 한 기간이다.’ - 이 말씀은 2월에 주일말씀으로 자세히 나오니, 그때 듣기 바랍니다.

12. 저마다 재림과 휴거의 복음을 받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간도 다르고, 구원받는 시간도 다르고, 육과 영이 부활되어 사망에서 나오는 시간도 다르고, 각자 노력하고 수고하는 책임에 따라서 육신이 깨닫고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맞는 시간도 다르다. 고로 <육적 휴거 시간>은 저마다 다르다.

13. 과수원지기가 과일을 따는 시간은 과일 하나하나마다 다르다. 그러나 과일을 다 따고 차에 싣고 가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과일을 따는 시간은 육적 휴거를 시키는 때와 같고, 딴 과일을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영적 휴거를 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과 같다.

14. 여행 가서 선물을 사는 시간은 각각 차이가 있다. 제일 먼저 산 것과 나중에 산 것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올 때는 동시에 가방에 넣어 온다. / 이와 같이 성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분체를 통해 시

대 복음을 전하여 육신을 휴거시키는 시간은 각자 깨닫고 따르는 것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땅에서 육신 휴거를 이루면서 준비된 영의 휴거는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실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세상의 한 날이 아니라 한 기간이다.)

15.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휴거>요, 옛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집의 휴거>요, 헌 옷을 입고 다니다가 새 옷을 사 입은 것이 <옷의 휴거>요, 가난한 자가 못살다가 잘살게 된 것이 <경제 휴거>요, 병든 자가 아프다가 나아져 건강하게 된 것이 <건강의 휴거>다. / <육적 휴거>는 이것이다. 성자 주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시대 본체를 통해 재림과 휴거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신부로 변화되어 성자 주님을 구세주로만 보고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하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그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그 영도 똑같이 성자의 신부로 변화되며 휴거의 영으로 성장된다. 그러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 영만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영적 휴거>다.

16. 휴거는 변화다.

17. 변화를 휴거로 표현하니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

18. 주님이 시대에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시대마다 휴거였다.

19. ‘올라간다.’라는 것을 휴거로 표현했기에 휴거를 특별한 것으로 알아 왔다.

20. 차원을 높인 것도 휴거다.

21. 자기가 소망하고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자기에게는 ‘휴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

22. 기독교가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풀고,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가르쳤기에 ‘휴거’를 신기하고 특별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23. ‘육’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자 주님을 맞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육’은 땅에서 시대 보낸 자를 맞고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를 맞고 사는 것이 휴거를 이룬 것이다.

24. 과거에 기독교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이하의 성구를 보고 가지도 않는 태양이 멈췄다고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 하실 것이 없다. 기적이다.” 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양이 가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지구가 멈췄다면 화젯거리가 됐을 것이고,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고 인정했을 것이다. 옛날 3400년 전, 천동설 시대에 살았던 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고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 현대인들이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 성자 주님은 내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모르고 산다.” 하시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 고로 나는 이미 40년 전부터 시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외쳐 왔다.

25. 기독교인들은 휴거에 대해서도 육신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호들갑을 떨며 미친 듯 날뛰었다. 육신은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데 그렇게 믿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짝사랑하는 자가 혼자 미쳐 좋아하다가 끝나는 격이다. 미련한 사람들은 안 되면 “하나님 뜻이야.”, 혹은 “하나님 왜 그래?” 하며 하나님 탓을 한다. 무지가 한탄하게 하는 것이다.

26. 아는 자 한 사람이, 모르는 세상 모든 자들을 다 이긴다.

27. 성자 주님은 처음에 진정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세계에 외치신다.

28. 성자 주님은 한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육으로 쓰면서, 온 세상을 개인·가정·민족 단위로 가르치며 역사를 펴 나가

신다.

29. 100년 전에 이미 기다린 것이 이루어지고 끝났는데, 사람이 모르면 책을 읽으면서 미래에 그 시대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희망으로 살아간다. <육신 휴거>도 이제 흘러간 옛말이 되었다.

30. 어떤 사람이 “앞으로 과일을 많이 먹고 사는 날이 온다고 해서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여 그 생애의 사연을 모두 들어 봤다. 그러니 이미 그 사람이 20대 때 그 혜택을 받고 지나간 것이었다. 바로 과일줍 시대가 와서 과일줍으로 과일을 많이 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앞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문자와 문맥이 다르니 몰랐던 것이다. 육적 휴거도, 영적 휴거도 이러하다.

<2013년 1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투자하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있다.
2. 시간 투자, 돈 투자, 노력 투자, 열심 투자, 사랑 투자를 하면 무(無)에서 유(有)의 표적이 일어난다.
3. 말씀 투자, 기도 투자를 하면 자기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에서 즉시 표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표적이 일어난다.
4. 메마른 땅도 투자하면 수영장도 만들고, 폭포수도 만들고, 호수도 만든다. 투자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는 곳에 즉시 기적이 일어난다.
5. 새벽에도 ‘시간 투자하기’다.
6. 낮에도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기’다.
7. 봄과 여름에 시간과 노력과 정성 등 모든 것을 투자한 농부가 가을에 많이 가둔다.
8.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여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큰 투자자들이 조종하니 망하는 자들이 90%다.
9. ‘주식 투자’는 게임이며, 투기이며, 돈 장사다.
10. 온전한 투자를 하여라.
11. 성자 주를 향한 투자가 온전한 투자다. 성자께 투자한 것은 망하지 않고 다 거둬들인다.
12. 투자 종목대로 거둬들인다.
13. 투자하고 관리하기다. 기르기다. 잡초를 뽑아 주고 쟁기기다. 가꾸기다.
14. 농부는 계절마다 투자하고, 계절마다 거둬들인다.
15. 성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여라.” 하며, ‘투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16. 성자 주님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투자하라고 하셨다.
17. 악평 투자, 시기 투자, 원망 투자는 스스로 망하게 한다.
18. ‘긍정적 투자’는 옳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이며, 결실을 얻게 되는 투자다.

19. <구원>을 위한 인생 일생 투자다.

20. <영과 혼의 변화>를 위한 투자다.

21. <휴거>를 위해 전능하신 성자에게 절대적 투자다.

22. 많이 투자한 자가 더 많이 얻듯이, 사랑도 그러하다. * ‘사랑’도 많이 투자한 자가 더 많이 얻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투자해야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얻는지 말씀하겠습니다. 핵심은 ‘먼저 사랑’입니다.

23. ‘사랑’은 받는 자보다 먼저 한 자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얻는다.

24. 사람들은 서로 먼저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흔히 “왜 늘 나만 먼저 사랑해 줘야 되냐?”라고 말한다. / 그러나 ‘사랑’은 먼저 해 주는 자가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더 기쁘고, 더 즐겁다. 짝사랑하는 자들을 보아라. 얼마나 좋아서 미쳐서 뛰느냐. 먼저 사랑하면 그와 같다. 성자를 먼저 사랑하여라.

25. 반드시 많은 사랑을 얻으려면 ‘먼저 사랑’이다. 그러면 자기 자체 뇌에서 가동되는 사랑은 70개를 얻고, 상대를 통해서 오는 사랑은 30개를 얻는다. / 상대가 먼저 사랑해서 사랑을 얻으면, 자기 자체 뇌에서 가동되는 사랑은 30개를 얻고, 상대를 통해서 오는 사랑도 30개를 얻는다. 고로 사랑을 적게 느낀다.

26.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왜 나만 먼저 투자하고, 너는 받기만 원하냐?”라고 한다.

27. 남녀도 서로 사랑을 받기만 하려 한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체로도 사랑의 기쁨을 얻고, 상대를 통해서도 사랑의 기쁨을 얻기 때문에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많이 얻게 된다.

28.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 열정이 높고, 차원이 높고, 마음·정신·생각으로 먼저 사랑을 느끼고, 혼체도 먼저 사랑을 느끼고, 그에 대한 기쁨과 희망을 얻는다. 그러다가 상대와 함께 뜻을 이루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도 얻게 된다.

29. 생명을 구하는 사랑을 보자. → ①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먼저 기도한다. 그때 성자와 교통하며 기쁨과 희망을 얻게 된다. ② 또한 한 생명을 놓고 그를 살리려고 간구하니, 그때부터 생명 사랑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받는다. / 자기가 이런 상태에 있어도 상대는 전혀 모른다. 먼저 생명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느끼고 받는다. / ③ 그다음에 그 생명을 위해 말씀 투자, 생명 투자를 한다. 그제야 상대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아서 따라온다. 그제야 상대방부터 조금씩 사랑이 오기 시작한다. / 이와 같이 사랑이든, 그 어떤 것이든 먼저 하는 쪽이 더 많은 사랑을 얻는다.

30. 성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먼저 주를 사랑해야 사랑을 더 얻게 되고, 성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받게 된다.

31. 먼저 사랑하는 자는 생각과 몸에 이미 사랑이 전초가 된 자다. 고로 성자가 사랑해 주셔도 그 사랑을 다 받게 된다.

32. “왜 나는 항상 먼저 사랑해야 되지?” 하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먼저 사랑하여라. 이는 마치 길을 더 많이 가려면, 먼저 출발하는 것과 같다.

33. 먼저 사랑해 주는 자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받는다.

34. 구걸하는 자에게 먼저 사랑을 주었다. 그때 사랑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니, 더 기쁘고 더 많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다.

35.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항상 사랑의 주인이 되어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신다. 고로 항상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을

많이 느끼시고 더 많이 얻으신다.

36. 누구든지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먼저 더 사랑하고 행하면, 그는 '주는 사랑'으로 인해 그 기쁨과 희망과 사랑을 다 받게 된다.

<2013년 1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37. '사랑'도 모래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떠서 안 주면 흘러가 버리고 만다.

38. 사랑을 안 주고 간수한다고 해서, 사랑이 산같이 쌓이지 않고 금고의 돈같이 쌓이지 않는다. 사랑은 안 주면 그냥 소모된다.

39. 자기가 상대를 사랑하려 해도 그 상대가 안 받으면, 다른 자에게 사랑을 주어 사랑을 소모시키지 말아야 된다. / 성자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유대 종교인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 사랑을 안 받으니,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주어 사랑을 받는 자들을 데리고 뜻을 펴 나가셨다.

40. 이 시대도 이미 34년 전부터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기성에게 이 시대급 구원의 사랑과 휴거의 사랑을 주셨다. 그러나 사랑을 줘도 그들이 안 받으니, 다른 젊은이들에게 주셨다. 그 젊은이들이 그 복음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여 시대 주인공들이 되었다.

41. 성자 주님이 사랑을 주셔도 미련하여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은, 후에 깨닫고 때가 지난 다음에 따라온다.

42. 성자 주님은 이 시대에 아무도 못 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자를 찾으셨다. 그리고 그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인도하여 성자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기도, 말씀, 시대, 때, 창조 목적, 사랑, 재림, 휴거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43. 먼저 사랑을 깨닫고 먼저 사랑하여라. 꾸준히 끝까지 하여라. 그러면 사랑의 주인공이 된다.

44. 사냥을 갔다가도 못 잡을 때가 있다. 그때는 사냥 기술을 배울 수 있었던 훈련이었다고 생각하여라. / 진실한 사랑을 투자했는데, 사랑을 얻지 못했느냐. 그때는 진실한 사랑을 배우는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며, 더 차원이 높고 고상한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성자 주님을 중심한 사랑이라야 사랑을 얻어도 영원한 참된 사랑이다.

45. 전능자의 법에 어긋난 사랑은 사랑을 얻어도 그 희망이 뜬구름과 같고, 오히려 해가 된다.

46. 영원하신 전능자와 함께 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며, 순리적 사랑이다.

4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다 사랑에 해당된다.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적극 사랑이고, 생명을 관리해 주며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성령으로 전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남녀가 사랑하는 것같이 삼위일체와 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48. 성자의 사랑은 수십만 가지다.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삼위일체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것이다.

49. 돈 버는 것이 한 가지인 줄로만 알면, 그 한 가지 일만 한다. 돈 버는 것이 수십만 가지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수십만 가지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수십만 가지다.

50. 세례요한은 외치는 소리가 컸고, 나사렛 예수님은 외치는 소리가 작았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오실 자를 증거하며 외쳐야 하니 소리가 커야 했고, 예수님은 이미 온 자신을 이야기하니 외치는 소리가 작아도 됐다.

51. 증거하며 외치는 자는 소리가 커야 했고, 주는 와서 말하니 소리가 작아도 됐다.

52. 제일 큰 존재자이면서 제일 소리가 작은 존재자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이시다. 성자 주님이시다. 소리 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53.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에 처지에 따라서 준다. 성자 주님도 그러하시다.

54. 사랑은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말씀을 들을 때만, 말씀을 전할 때만, 감사할 때만, 사랑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다. 길을 갈 때도, 어떤 여건이 됐을 때도 순간순간 온다.

55. 옳은 말을 하면서 주님께 이 말이 맞느냐고 하면, 맞다고 하면서 사랑이 온다.

56. 옷을 잘 입었는데도 사랑을 못 받는 자가 있다. 이는 사랑을 한 가지로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잠언은 다음 잠언을 들어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57. 사람의 옷은 육적으로 보면 두 가지다. 첫째, 인물 옷이다. 둘째, 입는 겉옷이다.

58. 사람은 저마다 수십 가지 종류의 옷을 입고 다닌다. 명예의 옷, 권세의 옷, 인물의 옷, 학벌의 옷, 지식의 옷, 지혜의 옷 등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실력의 옷이다.

59.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옷과 멋이다.

60. 최고로 비싸고,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옷을 보아라!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으로 이는 성자 주가 주신 '시대 사명의 옷'이다.

61. 시간을 투자하여라. 무(無)에서 창조의 표적이 일어난다.

62. 기도에 투자하여라. 표적이 일어난다.

63. 성자의 사랑에 투자하여라. 휴거의 표적이 일어난다.

64. 사랑에 잘못 투자하면 인생 망한다.

6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투자한 것은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고 영원까지 간다.

66. 늙기 전에 인생 투자, 사랑 투자다. 사랑도, 청춘도 때 지나면 강물같이 흘러가 버린다.

<2013년 1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땅에서 성공하는 자는 많은데, 하늘에서 성공하는 자는 적다.

2. 땅에서 성공하면 <누리는 기간>이 인생 한때요, 길면 두 때다.

3. 하늘에서 성공하면 <누리는 기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기간이다.

4. 땅에서 성공하는 세계는 너무 넓어서 성공할 것이 많다.

5. 육신이 땅에서 성공해 났더니, 인생의 해가 지고 있다.

6. 육신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여 하늘의 성공을 해 났더니, 그 공적이 모두 하늘나라에 쌓였다.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니, 찬란한 영광이 시작된다.

7. 욕신이 땅에서 영적인 것에 투자하여 하늘의 성공을 해 냈더니, 땅에서 성공한 것까지 모두 천국에 가 있어 그 영혼이 영원히 누린다.

8. 땅에서 성공한 자는 땅만 들고 돌다가 끝난다.

9. 땅의 성공, 땅의 명예, 땅의 권세, 땅의 영광은 인생의 해가 기울면 모두 짐이 된다. 고로 모두 벗어 놓고 그나마 가쁜 숨을 쉬게 된다.

10. 하늘의 성공, 하늘의 명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은 인생이 죽기까지 모두 안고 누리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고 가듯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서 누린다.

11. 땅의 성공, 땅의 명예, 땅의 권세, 땅의 영광은 욕신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하늘의 성공, 하늘의 명예,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은 영이 혼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서 영원히 누린다.

12. 땅의 성공과 명예와 영광의 끝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다. 죽은 시체 하나 남는다.

13. 세상에서 지구 세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사서 누렸어도 그 결과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서 천국의 한 평 땅을 얻고 산 것만 못하다.

14. 세상을 다 얻고 사는 자나, 못 얻고 사는 자나 겨우 자기 인생 100년 살고 간다.

15. 욕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의 것을 얻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이 거지가 되어 사망의 영의 세계로 간다.

16. 이 지구 세상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장소다. 고로 욕신으로 살더라도 영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17. 욕신은 세상에서 잠깐 산다. 그러나 욕신이 행한 대로 자기 영이 만들어져서, 결국 영이 만들어진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살게 된다. 고로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겉 세상인 지구를 볼 때 ‘결국 저기서 살다가 이곳으로 올 텐데...’ 하고 결눈질하며 본다.

18. 영의 세계의 영들은 욕의 세계를 볼 때,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계이므로 관심 없이 살아간다.

19. 욕의 세계에서 욕을 가지고 살다가, 욕신이 죽은 후에 영의 세계로 간 영들은... 욕의 세계는 다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없는 세계임을 알고, 욕의 세계의 생각을 잊고 산다.

20. 욕의 세계 사람들은 욕을 가지고 사니, 영의 세계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

21. 욕신이 지구 세상에서 살 때, 영의 세계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자기 영을 키우면, 자기 욕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영의 세계로 간다. 그렇지 않은 영들은 하나님 주권권 밖의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22. 시간이 빠져나가는 곳을 마치 산소용접 하여 때우듯 시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23. 시간이 빠져나가는 곳을 안 때우고 시간을 쓰면... 마치 바람이 빠져나가듯, 저장된 가스가 빠져나가듯, 그곳으로 시간이 다 빠져나간다.

24.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다. ‘기(氣)’다. ‘에너지’다.

25. 시간이 모자라거나 없으면, 그날은 갈 곳을 못 간다.

<2013년 1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신앙'과 '생활'은 별개가 아니다. 육신의 움직임 그 자체가 신앙이다.
2.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생활하는 그 생각과 삶을 밖에 나와서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3.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 노선에 따라서 교회에서나 밖에 나와서나 항상 자기 생활을 똑같이 해야 된다.
4. 육신의 생활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는 것이다.
5. 자기 육신의 행위 하나하나가 신앙생활이다.
6. 자기 육신이 행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행한 것이다. 자기 육신이 못 하면, 자기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못 한 것이다. 고로 육의 삶, 곧 '생활'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다.
7. 육의 행위가 죽으면 마음도, 혼도, 영도 죽는다.
8. 행위의 능력이다. 행위의 능력과 승리다.
9. 운동경기 때도 '마음과 정신의 결과'와 '육신의 행위'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느냐.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10. 자기 행실을 잡아야 된다.
11. 마음이야 다 먹을 수 있다. 누가 행하여 목적지를 오르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
12. 어떤 말을 듣고 감동받는 것은 1단계이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2단계다. 그 행위에 따라서 얼마나 얻었느냐가 3단계다.
13.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강한가, 그에 따라 얼마나 실천했는가에 따라 '소득'이 좌우된다.
14. 실천했어도 유익에 따라 평가한다.
15. 실천할 때, 정신일도 하여 지식·지혜·판단·전력·수단·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된다.
16. 생각이 보화다.
17. 좋은 생각이 좋은 보화다.
18. '마음'에는 수십만 가지 보화가 묻혀 있다. 캐내라!
19. 매일 보화를 캐내라! 세상 보화도 매일 캐내고, 하늘 보화도 매일 캐내라!
20. 땅에서 최고 보화는 '자기 자신'이다. 두 번째 보화는 '자기를 구원할 사랑하는 자'이며, 하늘로는 '전능하신 삼위 일체'다.
21. 세상의 보화만 기쁨과 가치와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묻힌 보화'가 더 가치 있다. 그것을 매일 캐내서 써라.

22. 기도를 깊이 하면, 누구든지 마음의 보화를 캐낸다.

23. 마음 세계, 정신 세계, 생각 세계의 보화는 무한하다.

<2013년 2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24. 세상은 알고 보면, 보화의 세계다.

25. 만물들이 모두 보화다. 인간 보화를 찾아라.

26. 땅과 하늘의 보화는 '사랑'이다.

27. 성자의 사랑을 뺏기지 말고, 매일 실천하여라.

28. <성자와의 대화>는 보화다.

29. <새벽>은 보화를 캐는 황금 시간이다.

30. <시간>은 보화다. 고로 쓰기에 따라 귀한 보화가 된다.

31. <진리>는 영원한 사랑의 천국으로 가는 보화다.

32. <증거>는 큰 보화다.

33. 성령의 보화, 신령의 보화, 사랑의 보화다.

34. <자기 재능>은 보화다.

35. <실천>은 보화다.

36. <운동>은 보화다.

37.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보화다.

38. <관리>는 보화다. 자기 관리와 모든 자들 관리다.

39. <생명을 구하는 것>이 보화다.

40. 자기가 보화인데 모른다.

41. 만물도 사람도 잘 쓰면, 보화다.

42. 만물도 사람도 잘못 쓰면, 보화가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43. <방법론>이 보화다.

44. 금반지, 금시계, 금 목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다녀도 처음에만 번쩍번쩍 호기심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이상을 가져다 주겠느냐.

45. 정신 보화, 생각 보화, 지혜 보화는 매일 기쁨을 주고, 이상을 주며, 자기를 흥분시킨다.
46. <훈>은 보화다. 고로 훈을 발견하고 써라. <영>은 영원한 존재자로서 보화다.
47. <말을 잘하는 것>은 큰 보화다.
48. <제스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큰 보화다.
49. <성자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은 큰 보화다.
50. <관심>은 보화다.
51. 과일나무는 끝에 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끝까지 가는 마음>이 보화다.
52. <잠언>은 보화다.
53. 한 잠언으로 한 생명이 전도되어 성자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었다.
54. 한 제자에게는 천만 원을 선물로 주고, 한 제자에게는 하나의 잠언을 선물로 주었다. 3년 후에 보니 돈을 준 자는 다 쓰고 남은 것이 없었고, 잠언을 준 자는 그 잠언으로 살아서 수역을 벌고 나에게 감사도 했다.
55. 잠언 하나를 받고 실천했더니, 1분에 천만 원을 벌었다. 잠언을 잘 읽어 보아라.
56. 내 혼체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고향의 산과 들로 다니면서 내가 찾는 보화가 있는지 찾아봐.” 하고 사명을 주었다. 그러니 내 혼체는 5분 만에 다 돌아다니고 내가 찾는 보화를 찾았다.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니, 자기는 혼체라서 못 가지고 오니 사람을 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어느 위치에 가면 내가 찾는 보화가 있으니 가져와라. 내 혼체를 같이 보낼게.” 했다. 제자들은 그 위치에 가서 내 혼체가 찾은 보화 10여 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월명동 박물관에 갖다 놓았다. 내 혼체에게 맞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다.
57. 내가 내 혼체에게 “인간 보화를 찾자. 성자께서 택하신 자를 찾자. 대전 거리를 다니면, 성자가 택하신 자가 지나간다는데 제자들이 못 찾는다. 네가 가 봐라. 제자들도 같이 보낼게. 네가 내 제자들 중에서 합당한 자들을 그때그때 써라.” 했다. 그랬더니 내 혼체는 두 달 만에 한 사람을 찾아왔다. 알고 보니, 제자들이 안 가는 곳에 묻힌 인간 보화였다. 그 사람은 운동선수인데, 그곳에는 제자들이 없으니까 내 혼체가 그 생명을 데려오느라 애를 먹었다. 결국 그 운동선수가 가는 길에 전도 특공대를 배치했고, 그들이 그 생명을 만나서 선생에게 편지했다. 그 운동선수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해 주니 신비하다고 하며 전도되었다.
58. 내 육신이 못 가니, 내 혼체가 가서 이 일 저 일 다 한다. 밤에는 꿈 영계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고 온다. 내 혼체에게 “너 정말인지, 제자들에게 물어볼게.” 하고 편지로 물어보니, 정말 선생의 혼체가 왔다 갔다고 했다.
59. <자기가 귀히 찾는 것>이 보화다.
60. 사람들은 보화를 일부만 알지, 잘 모른다. 고로 내가 가서 보화를 캐 온다.
61. 땅에 묻힌 보화도 있지만, 거리에도 눈에 보이게 보화가 있고, 산에도 들에도 보화가 있다.
62. 보아라. 보화인지 보아라.

63. 보고, 또 보고, 또 보아라.

64. 부지런해야 보화를 캐낸다.

65. 창조주가 보화를 창조했다. 고로 보화의 주인은 창조주다. 창조주께 보화를 달라고 졸라라. 그래야 주신다.

66. 희귀종 풀이나, 꽃이나, 돌이나, 나무나, 각종 것들이 다 보화다.

67. 형상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보화가 된다.

68. 사막의 모래에서도 보화를 만든다. 사막의 모래 장미 꽃 보화다.

69. 성자가 쓰시면, 보화 인생이 된다.

<2013년 2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동질 요소나 동질 존재가 아니면,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하나님과 통한다. 인간의 육이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대로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데, 영이 변화되는 대로 하나님과 닮아 가고,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2. 인간끼리도 남녀가 사랑하여 남녀의 유전자가 일체 되면, 같은 종인 인간을 낳아서 그 형상이 닮게 된다.

3. 육신인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면, 같은 종인 ‘육신’을 탄생시킨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일체 되면,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낳게 된다.

4. 절대 신인 전능자와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통해야 가장 빨리 통한다.

5. 성에 들어가려 할 때, 높은 성벽으로 가면 문지기가 잡는다. 문으로 통과하면 너무 쉽다.

6. 어둠 세계에서 살면서 해 뜨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 진리의 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7. 해가 떠서 대지를 밝히고 있어도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모른다.

8.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미래를 알고 빛 가운데서 사는 자와 믿지 않고 어둠 속에서 사는 자는 다르다.

9. 현재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사는 자들이 빛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지, 육의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 빛 가운데로 나와서 사는 자들이 봐야 안다.

10.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어떤 자는 그 영이 천국 구원을 받고 살고 있고, 어떤 자는 그 영이 지옥에 속해 살고 있다. 그래도 육의 눈으로 보면 모른다. 천국 구원을 받고 사는 자들만 안다. 이와 같이 새 시대 생명권에 사는 자들만 구시대 사망권에 사는 자들을 안다. 구시대 사망권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망권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

11. 집을 짓다가 못을 박는 망치가 필요한 자는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여 오직 망치만 찾고 다니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이 성자도 구원하러 오셨으니, 오직 ‘사랑’만 찾고 다니신다. 성자를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 고로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만 찾고, 그 눈에는 오직 사랑만 보인다. 그러다가 누가 성자를 부르면, 순식간에 가서 그 말을 들어보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지켜보신다.

12. 휴거 때는 성자를 사랑으로 찾고 두드리는 자만 찾고 다니신다.

13. 백성 가운데 보통 여자는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궁녀 자격이 되면 왕궁에 들어갈 수 있다. / 이와 같이 인간의 영도 보통 영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그 영이 사랑의 자격자가 되면, 성자가 오셔서 그 영을 천국에 데리고 들어가신다.

14. ‘말’이 역사가 되고, ‘행실’이 역사가 되는 자가 이 시대 성자의 본체가 된다.

15. 온전한 말이 아니면, 그 말은 비진리라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을 행해도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지 않는다.

16.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는 보통 일을 하고 끝내지 않는다. 성경에 예언한 것을 다 행하고, 그 외에 현대에 필요한 역사를 다 행하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

17. 사람이 수족이 멀쩡해도 신앙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신앙의 장애인이다.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잠을 한 번 더 자느냐, 덜 자느냐에 따라서 새벽 운명이 좌우되고, 인생 운명까지 좌우된다.

2. 한숨 더 자고서 탄 길 가고, 한숨 덜 자고서 탄 길 가게 된다.

3. 한숨 더 자고 기도 안 하니 ‘육’이 좀 편안하고, 한숨 덜 자고 기도하니 ‘영’이 풀리고 육도 풀린다.

4. ‘한순간’을 가지고 ‘육’이 가니 조금 갔다. ‘영’이 가고, ‘혼’이 가니 수천만 배 더 갔다.

5. 육적 시간은 많이 가지고 써도 별 표가 안 난다. 영적 시간과 혼적 시간은 조금 가지고 써도 엄청난 일을 하여 태산같이 표가 난다.

6. 육적으로 일만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신령한 일을 하여 육적인 일을 깨닫고 생각하고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이 하게 된다.

7. 영으로 생각하여 지혜를 받고서, 그에 따라 육으로 행하는 것이다.

8. ‘육’을 중심한 영의 지혜는 마치 어린아이를 중심한 어른의 지혜와 같고, ‘영’을 중심한 지혜는 마치 어른을 중심하여 어린아이가 따라서 하는 지혜와 같다.

9. <지혜>는 정신과 혼에게서 나고, 영에게서 난다.

10. 육은 기구다. 육은 물질이라서 목마르면 목이 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하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프고 괴롭다. 고로 육을 중시하면 약해서 안 된다.

11. 마음·정신·생각의 힘이다. 혼적인 힘과 영의 능력이다.

12. 육이 고장 나지 않게 늘 관리하여라.

13. ‘육’은 물질이라서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고로 고질이 되지 않게 관리하여라.

14. 육과 같이 ‘마음’도 민감하여 고질이 되고 습관화된다.

15. 식물을 응달에 놓고 기르다가 양달에 내놓으면 시든다. 마음·정신·생각도 그러하다. 고로 아주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마음·정신·생각은 마음먹고,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16. 사람도 강하게 관리하느냐, 약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17. 어떤 음식 재료든지 얼마든지 짜게 맵게 요리할 수 있다. 사람도 자기가 만들기에 따라서 마음도 체질도 만들어진다.
18. 신앙인은 신앙으로 만들기에 따라서 그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좌우된다. 만드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19. 만들기만 하고 못 써 먹으면 역시 가치 상실이다. 써 먹는 것도 자기 책임이 크다.
20. 전능하신 성자와 미약한 인간은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성자는 왜 전능자인가? 인간의 영과 같지도 않고, 인간의 욕과 같지도 않다. 그래서 전능자이시다.
21. 늘 전능자와 함께 하기다.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것과 크레인과 포클레인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듯이, 성자와 함께 할 때 이같이 차이가 난다.
22. 얼마만큼 주와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적 업적’과 ‘혼적 업적’이 좌우된다.
23. 성자 주님은 간구하고 애원해야 주신다. 왜냐하면 간구하고 애원하지 않았는데 주면, 값없이 받았기에 받아도 자기 차원으로 가치 없이 쓰기 때문이다.
24. 물건도 사람도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얼마나 그 가치를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 상대적인 것도 그 가치가 좌우된다. * 자기가 얼마나 가치를 알고 쓰느냐에 따라 상대의 가치도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음 잠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25.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쓰는 자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치 있게 쓴다. (돼지에게 야구공을 주니, 씹어 먹었다.)
26. 성자는 먼저 한 사람을 택하여 가치 있게 만들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들도 그같이 가치 있게 만들게 하면서 구원하신다.
27. 사람이 물건을 들 때 힘을 한 번 더 주면 못 들 것도 들고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잠을 한숨 더 안 자고 조금 더 하면 못 갈 길도 가게 된다.
28. 안 되는 일도 한 번 더 행할 때 행하게 된다.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2013년 2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횃수’에 의한 성공이 있다. 일곱 번에 끝날 일인데, 여섯 번 해서는 안 된다. 성자 앞에 사랑의 일도 그러하다.
30. 하나님과 성자 주께서 ‘정한 횃수’가 있다. 그 횃수만큼 안 하면, 안 주고 안 되게 하셨다.
31. 성경에도 절대 그만큼 했을 때 됐다고 말하며, 그와 같이 하라고 했다. 엘리사 선지자 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리라.” 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대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으니, 문둥병이 나았다(왕하 5:1-14).
32. 기계도 작동하려면 반드시 ‘횃수’가 있어서, 그만큼 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

33. 숫자는 숫자법이다. 고로 숫자를 지켜야 된다.
34. 병원에서 몇 번 더 치료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 횟수가 치료 단계 횟수이니 꼭 가야 된다. ‘일’도 횟수에 따라 완성된다.
35. 이틀에 할 일을 하루 만에 할 수 없다.
36. 두 번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한 번 해서는 할 수 없다.
37. 말도 한 번에 될 것이 있고, 두 번에 될 것이 있다.
38. 컴퓨터나 기계를 보면 숫자를 입력해 놓고, 그 횟수만큼 해야 되게 해 놓았다. 하나님도 그렇게 행하신다. 그러나 횟수를 모르니, ‘많이’, ‘끝까지’ 행해야 된다.
39. 전도도 끝까지 해 보아라. 일도 계속하면 결국 다 하게 되듯이, 전도도 그러하다.
40. 나무를 벨 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열 번 - 스무 번 - 서른 번 - 마흔 번 톱질하는 횟수가 달라진다. 이는 절대적인 법이다.
41. 큰일은 ‘많이’ 해야 이루어진다. 고로 큰일을 하는 자는 처음에는 표가 안 난다. 오랜 세월이 가야 된다. 그러나 해놓으면 웅장하다.
42. 어떤 일은 ‘횟수’보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목적을 달성한다.
43. 매일 해야 될 일은 그 날이 돌아와야 되기에 하루에 다 할 수 없다. 오직 ‘철저히’ 할 뿐이다.
44. 황금을 캐는 자가 마지막 하루를 더 갈까 말까 하다가 가서 수년 동안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게 된다. ‘마지막 횟수’를 채워서 마지막까지 행했기 때문이다.
45. ‘횟수’도 절대적이지만, 횟수에 상관없이 ‘얼마나 강하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46. 적극적으로 행하여라.
47. 반드시 이것을 알고 행하여라. 그것을 수고해서 얻어도 육적인 것이라면 별로다. 미리 알고 행하여라.
48. 별것도 아닌 것에 시간과 수고와 자기 몸과 인생을 투자하다가 좋은 것을 놓친다. 기도하여 신적 차원과 경지에서 성자 주께 확인하고 투자하여라.
49. 인생은 짧아서 열 가지에서 한두 가지를 골라서 하고, 나머지는 모두 포기한다. 열 가지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한 것보다 낫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동하는 백 명의 사람보다, 운동을 잘하는 한 사람이 더 낫듯 그러하다.
50. 잔돌 10개를 쌓아도 큰 돌 하나만 못하다.
51. ‘굵고 작게’가 아니다. ‘굵고 웅장하게’다.
52. 사람들은 흔히 “굵게 짧게 산다.” 하는데, 굵고 크게, 크고 길게 살아야 된다!
53. 굵게 크게 사는 자가 크게 되어 오래 산다.

54. 어떤 자는 굶게 크게 살아서 재벌이 되었다. 그러나 이성에 빠져 살다가 여자들에게 힘을 다 주고 건강이 파괴되어 80대에 죽었다. 그는 살아생전에 “매일 여자와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산다.”라고 한 자다. 그러다 일찍 죽은 것이다. ‘돈 버는 지혜’는 있었는데 ‘생명의 지혜’는 낮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그렇게는 안 살았을 것이다.

55. 지혜가 없으면 얻은 것도 못 누리고 죽는다.

56.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 그는 자기 주먹만 믿는다고 내게 큰소리쳤다. 그러더니 80대에 쓰러져 죽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내게 책임을 주시며 구원하라고 사명을 주셨기에 그를 만나 말했지만, 그는 내 말을 안 들었다.

57. 세계 최고 ‘주먹 왕’인데도 말년에 폐인이 됐다. 역시 인간 주먹이다.

58. 미약한 선생의 어머니는 전능자를 믿으니, 인생 90세까지 살고서도 100세를 채우려 한다. 미약한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께서 실 가닥 같은 힘만 주시면 세상의 큰 자들을 다 앞질러 간다. 그러나 세상에서 큰 자라도 하나님과 성자의 힘을 받지 못하니, 가다가 쓰러져 길바닥의 시체가 되었다.

59. 생명을 관리할 때, 많은 횡수의 관리보다 몇 번이라도 강하게 정신을 잡아 주어야!

60. 구부러진 철사를 바로잡듯이, 마음·정신·생각을 잡아 주어야!

61.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교회에 다녔어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행위를 보니, 6개월 동안 다른 신입생들보다 3배 더 튼 것이다.

<2013년 2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한 단계 더 좋은 구상은 참으로 엄청난 작품을 만들게 한다.

2.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은 구상을 하고 지으니, 양옥집에서 별장이 되었다. 신앙도 그러하다.

3. ‘한 단계 낮은 구상’과 ‘한 단계 더 높은 구상’은 별과 달같이 차이가 있고, 달과 해같이 차이가 있다.

4. 인간의 구상은 육신을 위한 구상이다. 고로 땅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의 구상은 달 앞에 해같이 빛나는 구상으로서 영의 구상, 천국의 구상이다.

5. 흔계에서 보니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고 있었다. 집을 지으려는 터 앞에 산이 있는데, 산 정상에 공원이 있었고, 그 공원 마당에는 두 아름씩 되는 큰 소나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건축가는 산 앞쪽에 집을 짓다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며, 한참 애를 쓰며 1층까지 지은 집을 다 뜯고 있었다. 알고 보니 더 좋은 구상이 생각난 것이다. 집에서 산이 보이도록 다시 구상하고 지은 것이다. / 신앙도, 모든 삶의 구상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다가 뜯고 다시 하는 것이다.

6. 더 좋은 구상이 생각나면 수고하여 했던 것을 뜯고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7. ‘더 못한 구상’과 ‘더 좋은 구상’은 땅과 하늘 차이다. 보통 사람과 미인 차이다. 그러니 더 좋은 구상이 있으면, 그 전에 하던 것을 뜯고 다시 하는 것이다.

8. ‘구상’은 하나님, ‘실천’은 우리다.

9.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쓰는 것이다.

10.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구상하셨다.

11. ‘행하면서 구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를 하면 그다음 2단계가 구상된다. 2단계를 하면 그다음 3단계가 구상된다. 이와 같이 ‘행하면서 구상’이다.

12. 하나님은 시대의 차원에 따라서 영원히 더 좋은 것으로 구상하고 행하신다.

13. 월명동 야심작은 다섯 번 구상을 실천했고 무너졌다. 그래서 여섯 번째 구상을 실천했다. 고로 대결작품이 되었다.
* 월명동은 어떻게 해서 여섯 번의 구상을 실천했는가? 다음 잠언을 보자.

14. 처음에는 시멘트 계단으로 구상하여 실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구상을 실천했다. 첫 번째에는 어느 지역에 석회석이 있어서 그 지역의 석회석들을 갖다가 쌓았다. 그랬더니 겨울에 돌이 얼었다가 봄이 되니 깨졌다. / 두 번째에는 대리석 조각을 갖다가 쌓았다. 그러나 얇고 가벼워서 돌이 앞으로 쏠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 다시 헐고 세 번째에는 돌 광산에서 돌들을 사다가 세우면서 쌓았다. 그런데 돌을 너무 경사지게 쌓아서 돌이 무게를 모두 받아서 중력을 못 견디고 무너졌다. / 네 번째에 다시 쌓았다. 이번에는 완만하게 쌓았다. 그러나 기초가 약해서 장마가 지니 무너졌다. / 다섯 번째에는 바닥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내고 돌을 쌓았다. / 그리고 여섯 번째에 하나님이 본래 보여 주신 구상대로 완성했다. ‘6’수는 끝나는 오메가 수다. 끝 수다. 다 쌓아 놓고 보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좋았다. / 하나님도 6일 만에 천지창조를 끝내셨다. 6일 만에 창조했다는 것은 6단계를 거쳐서 창조했다는 말이다. / ‘한 단계 더 좋은 구상의 실천’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15. 월명동 <사랑의 집>은 건물이니, 한 번 짓기 시작하면 뜯고 다시 짓기가 어려워서 한 번에 잘해야 했다. 고로 자연성전 앞산의 벽화인 야심작을 거울로 삼고서 한 번에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3년 이상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그리고 다시 고치면서 구상하고 짓기 시작했다.

16. 월명동 <사랑의 집>은 처음에는 지금 건물을 짓는 것같이 구상하지 않았다. 2012년이 돼서야 섭리 건축가들을 통해서 4층으로 할 것을 구상하고 거의 완벽하게 설계했다. 그 전에 건물 짓기를 실천하려고 할 때 한 어린 여자 설계사가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월명동 운동장에서 보니, 그같이 건축하면 건물에 가려서 해 뜨는 것이 안 보이고, 조산도 모두 가려서 답답하다고 하면서, 그때 설계한 것을 대충 그려서 보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생님의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선생은 “주님이 내게 그것을 보게 하시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을 틀게 하셨습니다.” 했다. / 그 제자가 전도되었을 때 선생이 말하기를 “앞으로 월명동에 건물 건축을 하는데, 그때 내가 너를 쓸 테니 나와 같이 일하자.” 했던 사람이었다. 결국 이 제자가 이와 같이 쓰임을 받았다. 그때의 약속대로 성자께서 크게 쓰신 것이다. / 이에 주님께 물으니 “그같이 건축하면 안 된다.” 하셨다. 고로 월명동 건물 건축을 실행하기 전에 무산시켰다. /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사랑의 집> 설계를 시작했다.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상을 받고, 현재 섭리 건축가들에게 설계도를 그려 보내게 하고, 구상을 새롭게 하여 착공했다. <사랑의 집>은 하나님의 구상으로 현재 그같이 짓게 되었다.

17. 전능자 하나님의 구상은 ‘환경’과 ‘시대’에 맞게 완벽하다.

18. 전능자 하나님의 구상은 영원히 다시 구상할 필요가 없는 ‘첨단 구상’이다.

19. 인간의 구조와 각 지체를 보아라. 어떻게 그와 같이 모양을 구상하셨는지, 어떤 기능을 하게 하셨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구상은 완벽하다.

20. 하나님의 ‘생명의 구상’을 보아라. 발육하고 성장하면서 완벽하게 완성되고, 그 모양과 형상이 구상대로 이루어진다.

21.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에 기절초풍하며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감사기도 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천지 만물 구상’, ‘인간 구상’, ‘천국과 영계 구상’을 보고서 감탄하고 찬양하고 알아주며 감사하니, 하나님은 “나의 구상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 세 가지 구상을 넣고 창조한다.” 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구상을 받으면 작으나 크나 꼭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이 세 가지의 구상을 받는다.

23. 선생은 삼위가 행하신 일을 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좋아하며 만든 것이 바로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지 만물과 저는 연관되어 있으니, 제가 죽는 날까지 성삼위가 만들어 주신 것을 최고로 써 먹겠습니다.” 했다. 이에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너는 가치를 아니, 계속해서 내가 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준 것들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써라. 나도 너를 계속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써서 나의 구상을 실천하겠다.” 하셨다.

24. 오늘 새벽에도 성자 주님은 내 혼체에게 더 좋은 구상과 이상을 보여 주셨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 매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도, 달도, 별도, 지구도 내 몸 쓰듯이 쓰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며 좋아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는 우주와 천국과 인간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다. 다른 사람들은 삼위가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고서 매일 감탄하지 않고, 자기 몸 사용하듯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깨닫고 감사해도 순간뿐이니,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느낀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만 주신다. / 과학이 발달되어서 천지 만물에 대해서 알아도 일부분만 안다. 천지 만물을 만든 존재자에게 물어야 제대로 안다. 월명동을 봐어도 제대로 모른다. 월명동 구상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아시고, 그에 직결되어 그 구상을 실천한 선생만 안다. 아는 자가 이야기해 주니 아는 것이다.

<2013년 2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26. 사람도 ‘한 단계 낮은 사람’과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은 별과 달같이 차이가 있고, 달과 해같이 차이가 있다.

27. 역사도 ‘한 단계 낮은 구 역사’와 ‘한 단계 더 높은 새 역사’는 호롱불과 전깃불같이 차이가 있고, 전깃불과 태양빛같이 차이가 있다. 구약은 호롱불, 신약은 전깃불, 성약은 태양빛이다.

28. 제 것이 좋다 하며 큰소리치던 자도 더 좋은 것과 비교하면 놀랄 것이다. 그때는 잠잠하고 제 것을 숨긴다.

29. 70년대에 월명동 초가집을 부수고 새 집인 함석집을 만들어 놓으니, 정말 그림 같은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도 와서 너무 좋다고 했다. 이에 선생은 너무나도 보람 있고 기뻐다. 예수님이 지어 주신 집이었다. / 그 후에 서울에 가서 건물들을 보고 놀랐다. 화장실도 대리석으로 지어 놔서 빛이 났다. 그때 ‘내 시골집은 서울 화장실만도 못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다. / 더 좋은 것 앞에는 ‘내가 최고다!’ 하는 것도 빛을 잃는다. ‘시대’도, ‘진리’도 그러하다.

30.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그러하다. 신약 때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니, 구약의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은 하나의 예언자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왕들도 빛을 잃었고, 구약의 모세도 빛을 잃었다. 이 시대도 기다리는 자가 오면 그러하다.

31. 월명동에 자연성전 개발을 시작하려 할 때, 주님은 “함석집은 포클레인으로 한 번에 헐어 버려라.” 하셨다. 월명동을 개발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니, 서울의 어떤 빌딩도 집도 공원도 월명동과는 비교가 안 되었다. 월명동은 하나님 궁이 되었다. 그 배경과 환경은 동에서 서까지, 남에서 북까지, 저 멀리 대둔산까지 이어져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했다. / 월명동은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못 다닌다. 서울의 어느 집, 정원, 빌딩이 하루 종일 돌아다닐 수 있겠느냐. 그것들과 월명동과의 차이는 달과 해의 차이이다. 비교가 안 된다. 그 어느 곳에 밀림 숲이 딸려 있고, 호수가 딸려 있고, 한 시간 이상 가는 산책로가 딸려 있느냐. 월명동은 43만 평이나 되는 하늘의 궁이며, 하나님의 정원이며 동산이다. 주위에 산이 열두 개요, 샘도 열두 개다. / 세계적인 성전이라 하는 베드로 성당과 이태리 밀라노 두오모 성전 안에 산이 열두 개씩 있고, 샘이 열두 개씩 있고, 1000명 이상이 수영하고 배를 타는 호수가 있고, 수만 명이 따먹고도 남은 감나무가 있고, 수백만 주의 나무들이 있느냐. / 월명동은 성약세계 하나님이 궁이다.

32.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해 줘도 모르고 쓰는 자는 소경이라서 보람을 못 느낀다.

33.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작다. 월명동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섭리인들이 가서 신발을 벗어 놓을 곳도 없다. 새 시대가 더 좋은 차원의 것을 만든다.
34. 월명동 전체가 성전이니, 전체를 건물같이 관리하면서 쓰자.
35. 신앙도 구상이다. 한 차원 더 좋게 구상하고 해야 된다.
36.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서 신앙을 한다고 해서 더 힘든 것이 아니다.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서 신앙을 하나, 제자 리에서 신앙을 하나 힘은 똑같이 든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게 다르다. 조금의 차이인데 못 따라간다.
37. 한 차원 더 높여서 신앙을 하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고 쉽다. 그리고 광명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38. 제품도 한 차원 더 높게 구상하고 만든 것을 사 간다.
39. 구시대에는 새 시대보다 한 차원 낮은 단계다. 고로 새 말씀을 전해 주면 새 시대를 알고 따라온다.
40. 비교해서 가르쳐 주어라. 소경들이라도 만져 보고서 길고 짧은 것을 알 것이다.
41. 월명동에 작은 소나무들을 심어서 안 죽게 키우는 단계는 ‘한 단계 낮은 구상 실천’이었다. 조금 큰 소나무들을 가져다 심는 단계는 한 차원 더 높은 ‘2단계 구상 실천’이었다. 아주 큰 소나무들을 가져다 심는 단계는 가장 높은 ‘3단계 큰 구상 실천’이었다. / 더 이상 큰 나무를 옮기면 죽으니, 최고 마지막 단계는 ‘키우기 구상’이었다. 나무를 심어 놓고 해마다 퇴비하여 키우면 몇 아름씩 되는 나무로 자라니, 이것이 ‘최고 구상 실천’이었다.
42. 월명동에 돌을 눕혀서 쌓는 것은 ‘한 단계 낮은 구상 실천’이고, 돌을 세워서 쌓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구상 실천’이었다.
43. 보통 크기의 돌을 쌓는 것은 ‘1단계 구상 실천’이고, 더 큰 돌을 쌓는 것은 ‘2단계 구상 실천’이고, 아주 큰 돌을 쌓는 것은 ‘3단계 구상 실천’이었다. 그다음에 현대 장비로는 옮길 수 없는 정도의 돌을 가져다 쌓는 것은 ‘최고 차원의 구상 실천’이었다. 그다음에는 바위 밑의 흙을 더 파내서 500톤, 1000톤, 10만 톤의 바위를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실천했다. / 이같이 하여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구상을 실천했다.
44. 내가 머리 쓰며 골치 아플 것 없다.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면 실천하기다.
45. 내가 할 일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상을 받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으면 실천하는 것이다.
46. 하나님이 구상해 주시면, 나와 제자들은 구상대로 실천했고, 성자는 감독하시면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어 이리저리 행하게 하셨다.
47. 하나님이 구상을 안 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시면,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힘도 안 난다.
48. 성자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고 나서 못 한다.
49.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구상을 주시면, 그보다 못 하게 했던 일을 헐고 다시 하는 것이다.
50. 섭리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구상대로 길러야 해같이 빛난다.
51. 하나님의 구상대로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키워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어 행하게 하신다. 그에 따라 사명이 결정된다.

52. 월명동같이 전능자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해야 성자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해야 삼위일체가 기뻐하시며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53. 이 시대 구상대로 해야 ‘육’도 땅에서 휴거되고, ‘영’은 성자 본체가 오시면 하늘로 휴거된다.

54. 구상은 구도다. 설계다. 아이디어다.

55. 1, 2, 3... 모든 숫자도 ‘하나님의 구상’과 ‘인간의 실천’이다.

56. 자기가 했다고 해서 자기 구상과 자기 실천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인간 자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라. 고로 모든 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2013년 2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57. 내 혼체가 혼계에서 보니, 한 회사가 땅을 사 놓고서 공사를 하는데, 여기저기 공사를 하다만 곳이 있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자들에게 “이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를 하다가 말았네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아니야. 돈이 없어서 공사를 하다 만 것이야.” 했다.

58. 섭리사에서도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행하지 않으니, 돈이 없어서 건물을 짓다만 자들과 같다. 신앙적으로 보면, 돈은 ‘의’다. ‘공적’이다. 고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행하여 하나님께 의를 얻어라.

59. 혼계에서 사람들이 한 공원 안에 허가를 받고 집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관청에서 나오기 전에 나뭇가지들을 잘라서 버려야지. 관청에서 오고 난 후에는 가지치기도 못 한다. 그들이 지시하는 가지만 잘라야 되기 때문이다.” 하며, 집을 지을 때 걸리는 나무의 가지를 보고서 관청에서 오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지혜였다. 혼의 세계에서 혼체들은 더욱 지혜 있게 행했다. / 잠시 후 관청에서 나와서 이미 가지들을 잘린 나무는 말을 안 하고, 이곳은 공원이니 자기들이 지적하는 것만 자르라고 했다. 집 짓는 것은 허락했어도 공원의 나무들을 손대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들은 관청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집을 지을 때 걸리는 나무의 가지들을 모두 잘라서 집짓기 좋게 해 놓았다.

60. ‘지혜’는 알고, 요령껏 행하는 것이었다.

61. 선생은 좋은 나무만 보면, 마음이 쏠려서 월명동에 심고 싶어 한다. 꿈에서도 큰 나무를 보면, 깨다가 월명동에 심으려 한다. 한번은 좋은 큰 나무 한 주를 사서 월명동으로 가지고 오다가 보니, 꿈이었다. 선생이 이같이 하니,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나무를 주신다.

62. 선생은 좋은 돌이나 나무만 보면 “월명동에 놓으면 좋겠다.” 한다.

63. 신앙생활 하면서 여건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나서 못 하고 있다가 후에 여건이 되어 더 좋은 것이 생각났을 때는 예전에 한 것은 헛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64. 자기가 차원 높은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차원 높게 해 놓은 자의 것을 보면서 하면 된다.

65. ‘구상’은 더 이상적인 구원이다.

66. 음식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구상’에 따라서 맛있고 비싼 음식이 된다.

67. 얼굴도 구상대로 개성도 있고 예쁘다.

68. 사람이 계획한 일을 하다가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던 일을 접고 더 좋은 구상이 생각난 대로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69. 어떤 사람이 대희망을 가지고 먹을 것을 싸 가지고 목적인 곳으로 가고 있었다. 가는 길에 길손님을 만났다. 길손님은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저는 지금 바빠서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1년 동안 구상하고 지금 대희망을 가지고 목적인 곳에 가는 길입니다.” 했다. 길손님은 어디를 가냐고 물었다. “정말 멋진 곳에 갑니다. 그곳은 멀어서 차를 타고 가도 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를 갑니까?” 했다. 길손님이 말하기를 “저는 이산 넘어 계곡에 갑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려 하는 그 계곡은 제가 살던 마을의 골짜기인데 소문만 거하게 났지, 실상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장사꾼들이 음식 장사를 하려고 홍보를 해서 모두 왔다가 보면,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갑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훨씬 나아요. 갔다 온 사람이 직접 말하니 내 말을 들으세요.” 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길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발길을 돌려서 길손님을 따라서 갔다. / 이와 같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본래 계획한 것을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70. 월명동 <사랑의 집>도 처음에는 다르게 설계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기 전에 성자께서 한 제자를 통해 틀어 주셔서 설계를 더 좋게 바꿔 주셨다. 선생이 막혀 있을 때, 성자 주님은 선생이 말을 잘 들어 주는 자를 가지고 트신다.

71. 성자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행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었느냐. 실망하지 말아라. 주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하니깐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일을 틀어 안 되게 하신 것이다. 그다음에는 전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잘되게 해 주신다.

72. 첫 번째 약속이 깨지니, 두 번째 약속으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

73. 더 좋은 역사다. 구시대와 새 시대는 대조가 안 된다. 작은 돌과 큰 돌 차이이다.

74. 옛날에 짝사랑했던 사람이 그 시대에는 가장 돋보이고 크게 보였다. 지금은 늙어서 이 빠지고, 허리가 활처럼 구부러지고, 얼굴은 묵나물 덩어리가 되었다.

75. 옛날에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나와 같은가 하고 보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들을 만난 제자가 사연을 모두 써서 보냈다. 그는 완전 노인 측에 들게 변해 있었는데, 그가 묻기를 “선생님이 많이 늙어서 골골하지 않아?” 하여,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거리에서 보면 몰라볼 거야.” 했다고 내게 소식을 전해왔다.

76. 섭리인들은 성자의 사랑하는 자들이라서 성자께서 꽤 신경 써 주신다. 그러니 본인도 신경 쓰고, 정신 쓰고, 행동도 써야 된다.

77. 마음 늙으면 몸도 늙는다.

78. 이름 보고 알지, 얼굴 보고는 모른다. 이미 늙어서 옛사람이 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에 매이면 그 시대 사람이 되고 만다.

79. 자기 시대 사람끼리 사니 늙는지 모른다. 똑같이 조금씩 늙어가기 때문이다. 후시대 사람이 보면 늙은 것을 바로 안다.

<2013년 2월 8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잠언>

1. 사랑과 반응이다.

2. 성자의 사랑을 받아도 반응이 없으면 기쁘지 않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해 주시고, 반응을 보고 대하신다.

4. 사랑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죽은 자다.” 하신다.
5. 성자 주님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면서,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좋아하며 대하는지 보신다.
6. ‘사랑의 반응’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자에게 보여야 된다.
7. ‘반응’은 자기 혼자 기뻐하면서 느끼면, 자기에게서 끝나는 반응이다. 상대가 반응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반응이다.
8. 주는 반응이 강한 자를 쓰신다.
9. 사랑을 더 많이 받느냐보다, 사랑해 주었을 때 얼마나 사모하며 그 사랑에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사명도, 위치도, 역사하는 것도, 가까이하는 것도 결정된다.
10. 말씀을 해 줘도 반응이 약한 자는 행하지 않는다. 성자 주님은 말씀을 듣고 놀라고 감격해서 행하는 자와 같이 일하시고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신다.
11. 중심자를 뽑을 때는 ‘반응’ 보고 뽑는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인생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 그러나 누가 그 사랑에 더 감탄하고, 사모하고, 가치 있게 보고, 좋아하고, 따르며 행하느냐를 보고 ‘최고로 반응이 강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
13.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택하려 하는데 만나는 여자들에게 모두 밥도 사 주고, 차도 사 주고, 옷도 사 줬다 하자. 그중에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로 택하겠느냐. 가장 감격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반응’을 보인 여자를 택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14. ‘사랑과 반응’이다. 반응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성자이시다.
15.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을 때, 백성들은 신광야로 와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만 불평했다. 고로 버렸다.
16. 섭리사에서도 하나님과 성자가 사랑해 주셨는데 반응을 안 보이고 별로로 생각한 자들은 “이 꼴뚜기 같은 인생아.” 하고 택하지 않았다.
17. 성자의 행하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가치를 큰 희망으로 여기고 좋아하며 좇는 자들만 데리고 ‘사랑의 역사’를 펴면서, 보다 이상적인 역사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기서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해서 알리고,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끝까지 따라가니 “나 황태자다.”라고 알려 주듯이, 성자도 그리하셨다.
18. 따라오다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고 잘난 체하고 사랑받고 흠이나 잡고 미친개같이 물고 덤비고 꼬투리나 잡던 자들은 전능자와 성자와 보낸 자와 성령님을 가치 없게 본 연고로 그 영혼은 뽑힌 나무가 되게 했다.
19. 사랑은 반응이다. 반응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20. 마음·정신·생각이 살아 있는 자가 반응을 보인다. 마음·정신·생각이 살아 있지 않는 자는 살아 계신 성자의 사랑을 못 느낀다.
21. 하나님과 성자는 죽은 자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22. 염소는 쓰다듬어 주며 사랑하니 떠받아 버리는 반응을 보였다. 고로 목자가 왼편에 났다. 양은 쓰다듬어 주며 사랑하니, 따르는 반응을 보였다. 고로 목자가 오른편에 났다.
23. 뱀은 만지며 사랑해 주니 물려고 반응을 보였다. 이를 알고 깊은 불 속에 넣었다.
24. 성자와 그 분체가 사랑해 주면, 빨리 깨닫고 좋은 반응을 보이도록 네 마음, 정신, 생각, 성격, 행동을 고쳐라!
25. 섭리역사 지난 34년 동안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 휴거 역사를 이끌면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수천 가지로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반응을 보고 행위대로 갚아 주셨다.
26.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면 잠깐 반응을 보여 순간만 감격하고 끝나는 양은 냄비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라.
27. 신랑 되신 성자 주께서 어떤 일을 해 주시든지 사랑으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가령 눈으로 윙크만 보내도, 말썹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도, 도와줘도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좋아서 온몸이 뽕뽕 떠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28. 모두 성자의 사랑에 미치라고 기도해 주니, 성자의 사랑에 미쳐라. 도달하여라!
29. 성자 주님이 사랑해 주시면 ‘즉시!’ 주와 같이 일체 되어 기뻐 소리 지르고, 감사 감격으로 반응을 보이고, “성자 주님! 오셨나이까?” 하며 반응을 보여야 된다.
30. 구시대에는 감각이 없어서 반응을 못 하여 성자 주님을 신랑으로 맞지 못하고 끝났다. 반응이 일어났던 자들도 가다가 불신의 반응, 악평의 반응, “기분 나쁘게 왜 손대?” 하는 반응을 보이고 끝났다. 고로 성자 주께서 무색하니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셨다.
31. 좋게 반응을 보이는 자들만 데리고 자유의 세계, 이상세계, 독립된 땅, 성약역사로 데리고 와서 살게 하셨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한 것은 ‘반응 보이기’다.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사랑해 주실 때, 그 사랑에 반응을 보여야 용광로처럼 불타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34. 선생은 성자 주님을 맞이하고서 너무 엄청난 존재를 봤다고 하며 기절했다.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자랑하며, 마음이 흥분되어 오직 성자를 사랑하며 살았다.
35. 성자께서 좋은 꿈을 꾸게 하시어 얻은 것이 있는데, 10년이 넘었어도 마치 지금 당장 받은 것같이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이야기한다.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 육은 육에 있어도 마음은 잔치한다.
36. 매일 줘도 반응은 늘 무표정이면, 사랑하는 자가 힘이 빠져서 다른 자를 사랑한다. 짝사랑은 반응이 없다. (고로 사랑해 줬을 때, 반응을 보고서 사랑할 자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37. 선생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연성전을 주셨다고 매일 좋아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함께 만들지도 않고 쓰기만 하는 자들이 감격할 줄 모르고, 관광지처럼 구경만 하고 만다. 이런 자에게는 자연성전으로 인한 기쁨을 안 주신다.
38. 자연성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만물의 몸이다. 성자의 몸을 만지는데도 사랑의 반응이 없으니 못 만지게 하고, 자연성전에 못 오게 감동시켜 버린다.
39. 섭리사는 그동안 ‘반응’을 보고 길러 왔다. 반응이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없다.

40. 농부가 과일나무에 퇴비하고 사랑해 줘도 나무가 반응이 없으면 “이상하다.” 하고 뿌리를 확인한다. 확인하니, 뿌리가 썩어서 살아 있는 뿌리가 별로 없었다. 죽었으니 반응하지 않은 것이다.
41. 뿌리가 싱싱한 나무는 퇴비하면, 일주일만 가도 열매의 색깔이 달라지고 싱싱하다.
42. 전능자 성자의 말씀을 줘도 반응이 별로인 자는 그 영이 사망권으로 기울어 영원히 지옥으로 가서 살게 되니, 정신 차려라!
43. 선생은 몸부림쳐 <타락론>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바위를 주먹으로 치면서 하나님과 성자에게 감사했다.
44. 주가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휴거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자.” 해도 무표정이고, 불만이고, 오히려 꼬투리를 잡으려 하니 가만히 있겠느냐. 심판의 날을 정해 놓고, 스스로 자기 행위로 인해 사망길로 가서 평생 구원의 꼴을 못 보게 하신다.
45. 꿈에 내 혼체가 어떤 아는 자에게 “전에 나와 같이 밥상에서 먹고 즐기던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한 자들이 운영하는 곳에 다니고 있어.” 했다. 사람이 길을 벗어나서 갈 길이 없으면, 절벽이라도 길처럼 가야 된다.
46. 꿈에 내 혼체가 어떤 산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산적들이 나를 쫓아오기에 도망쳐서 어느 한 곳에 갔다. 거기서 보니, 2m나 되는 기둥만 한 <족제비과> 동물이 가만히 있었다. “이상하다?” 하고 건드려 보니, 그대로 말라 죽어 있었다. 그 옆에 가서 보니, 또 같은 <족제비과>인 한 동물이 쭉 뻗어 있었다. 머리통을 건드리니, 마지막으로 죽어 가면서 이빨만 갈고 있었다. / 꿈에서 깨고 보니, 낮에 내 옆에서 나를 힐문하던 자들을 보여 주신 것이다. 사람을 짐승으로 보이면서 ‘그와 같다.’ 함이었다. / 내가 그들을 두고 사탄이 물러가도록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내 꿈에 사탄의 행위와 결과를 보여 주신 것이다.
47. 나는 그 짐승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계속 기도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다음 날 꿈에 무덤을 보여 주셨다. 장사 지낸 바가 된 것이었다.
48. 성령 감동의 반응을 보여라. 심령이 둔한 자는 반응이 둔하다.
49. 사랑에 둔한 자는 반응에도 둔하다.
50. 사랑해 주고 반응을 보이는 대로 ‘사명’을 준다.
51. 사랑해 주고서 반응이 영적이면 ‘영적 사명’을 주고, 반응이 육적이면 ‘육적 사명’을 준다.
52. 성자가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랑에 반응하니 “너는 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 살아라.” 하셨다.
53. 성자가 사랑해 주시고 그 후에 반응을 보니, 공부했다. 이에 주님은 책을 사 주시며 “너는 공부나 해.” 하셨다.
54. 성자가 사랑해 주시고 반응을 보니, 사업하고 일하러 갔다. 이에 주님은 “내가 축복해 줄게. 그 일 열심히 해.” 하셨다.
55. 성자가 사랑해 주시고 반응을 보니, 밥을 해 주었다. 이에 주님은 “너는 내 옆에서 살면서 밥해 줘.” 하셨다.
56. 성자가 사랑해 주고 반응을 보니, 주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고로 이야기해 주며 “너는 내 사랑의 신부가 되어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 하셨다.
57. 성자가 사랑해 주고 반응을 보니, 전도하러 갔다. 이에 주님은 “너는 계속 전도해. 나도 함께할게.” 하셨다.

5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사랑해 주시고 각자의 반응을 보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등 여러 가지로 사랑해 주시면서 과연 며칠이나, 몇 달이나, 몇 년이나 좋아하고 기뻐하며 반응을 보이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보신다.

59. '반응'으로 개통된다. 교통된다. 소통된다.

60. 성장돼야 깨닫고 제대로 반응을 보인다.

61. 나이 든 자들은 자기 본성의 반응을 보인다.

62. 어린 자들은 반응을 잘 보인다.

63. 구시대 종교인들은 늙어서 잘 못 느끼니, 반응을 안 보인다.

64. 시대 복음은 젊은이들에게 전하여라!

65. 늙은 여인은 사랑해 줘도 싫어한다.

66. 늙은 자는 옥수수 통으로 등을 긁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하고, 손발을 주물러 주면 좋아서 주머니에 꼬불쳐 놓은 동전을 준다. / 구시대의 신앙이 늙은 자들도 그러하다. 섭리사에서 나이가 젊은 자들도 신앙이 늙은 자들은 그러하다. 젊지만, 마음·정신·생각과 행동이 늙은이다. 반응이 없는 자는 젊은 늙은이다.

67. 젊어도 늙은 짓 하면 늙은이다.

68. 늙은 자도 젊은이같이 뛰고 살면 젊은 자다.

69. 반응을 보려 사랑한다.

70. 반응이 기쁨이다.

71. 성능이 좋아야 반응이 크다.

72. 전자 제품도 성능이 약하면 선명도의 반응이 약하다.

73. 포클레인도 성능이 약하면 반응이 약하다.

74. 자기를 연단하고 단련하여라. 반응이 좋아진다.

75. 한 나라 지도자도 각종으로 심정 태우고 애간장 태우면서 단련한 후에 지도자가 된다. 그래야 마른 땅에 물 붓듯이 스며들어 지도자로서 일을 감당한다.

76. 사랑해도 반응이 별로인 자는 생각이 딴 데 있기 때문이다.

77. 사랑하는 자의 목적대로 반응을 보여야 심정 일체 되어서 성자의 영원한 뜻을 이루게 된다.

78. 반응이 온전한 자는 성자 주님이 지혜를 보내면 지혜를 받고 느끼고 받는다.

79. 반응에 무딘 자는 말씀을 중심해 보냈는데 찬양의 반응을 보인다. 반응에 둔한 자다.

80. 어떤 자는 이 시대에 맞게 말씀을 외쳐 주라고 하니, 30개론만 외친다. 주의 손발이 되지 못하고, 제 손발이 되어 사는 자다.
81. 성자의 시간에 맞춰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82. 제때 제 반응이다.
83. 성자와 대화해야 뇌가 반응하고 지체가 발달되어 반응을 제대로 나타낸다.
84. 성장했어도 발달시키지 않으면 기능이 약하다.
85. 예술도 발달시켜야 차원이 높아지듯이, 어린아이도 영적으로 정신을 발달시켜야 성자가 사랑해 주면 반응을 잘 보인다.
86. 정신을 발달시키지 않으면, 육체가 성장되어 있어도 기능 발휘를 잘 못 한다.
87. 마음·정신·생각 발달이다. 그래야 육신도 발달된다.
88. 기도를 깊이 해야 마음·정신·생각이 발달된다.
89. 주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 발달, 정신 발달이 된다. 그래야 그 정신에 따라서 육이 행하여 육도 더 유능하게 반응을 보인다.
90. 영적으로 발달해야 영적으로 얻는다. 육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육적으로 얻게 된다.
91. 성자는 영적으로 사랑했는데 육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는 육적인 자요, 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는 주와 심정이 하나 된 자다.
92. 성자가 육적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육을 들어 비유해야 하기에 육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깨닫고 알아라!!
93. 영적 사랑을 말하려 해도 세상의 '사랑' 단어를 써야 깨닫고 알게 되니, 육적 사랑을 비유로 들어 말하면서 "영적 사랑도 이와 같이 '생각'으로 서로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94. 왜 그 비유를 들겠느냐. 깨달아라.
95. 어떤 사람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망상에 젖어 '하늘 구름'만 쳐다본다. 영적으로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한 것을 깨닫고 근본을 봐야 한다. '인간 구름'을 타고 전능하신 성자가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96. 어떤 사람은 백마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동물 백마'만 쳐다본다. '깨끗한 사람으로서 뛰고 달리는 자'를 말한 것이다.
97. 어떤 사람은 동산의 과일을 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 농장의 과일을 안 따 먹고 팔기만 했다. '사랑의 과일'로서 '지체 비유'인 것을 알아야 된다.
98. 어떤 사람은 사슴 이야기를 하니까 먼 길을 가서 동물원의 사슴을 보고 왔다고 편지를 보내왔다. 자기 옆에서 사슴같이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는 자를 보라 함이었다. 너도 그같이 뛰고 행하라 함이었다.

99. 듣기는 들어도 저 기성같이 문자대로 해석하여 그것을 핵으로 삼고 사니, 육에 속해 살고 끝난다.
100.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옆에 있어도 적이 있을 때는 “저기 있다. 거기 가 봐라.” 하고, 적이 없을 때는 “여기 있다.” 한다.
101. 누가 ‘동’을 ‘서’라 하겠느냐. 무지하여 물고 뜯을까 하여 ‘동’을 ‘서’라 하여 쪼개려 한다. 지혜자만 알고 따른다.
102. 사랑하지 않은 자는 안 가고, 사랑하는 자는 갈 줄 알고 “저 높은 산에 가자.” 했다. 역시 염소들은 따라오지 않았고 양들은 따라왔다. 결국 양과 염소를 쪼개 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갔고, 염소는 잡아먹는 자를 따라갔다.
103.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자기 기술을 안 써먹고서는 작품을 못 만든다. 만들다가 마음이 안 드니, 계속 반복하여 손대면서 자기 기술을 다 쓰면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만들고 만다. 이 잠언이 무슨 잠언이겠느냐. 깨달아 보아라.
104. 작가는 결국 자기 기술을 다 써서 작품을 만든다. 그러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사랑스럽지 않겠느냐.
105. 짐승은 털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잘 구상하고 창조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인데 짐승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106. 털이 그렇게 많은데도 방에서 짐승을 껴안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
107. 짐승의 지능을 낮춰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여라. 짐승의 지능이 더 높고 깊으면, 사람이 짐승을 너무 좋아하여 사람과 이혼하고서 짐승과 같이 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짐승과 같이 사는 자들이 많다.
108. 만물을 좋아하며 그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자들도 짐승과 함께 사는 자들의 지능과 비슷하다.
109. 신의 지능을 가진 자는 신과 함께 즐기며 산다.
110. 자기 생각의 수준에 따라 상대를 찾아서 살아간다.
111.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며 혼자 좋아하며 살아간다. 하늘 아래 집을 짓고 사는 자가 보니, 모두 음부의 깊은 수렁에 빠져 영혼의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알아도 말하지 않는다. 각자 본인이 깨닫고 알고 행할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자기가 사망에서 나와야 그제야 하늘 아래 사는 자가 이야기해 준다.
112. 귀먹은 자에게 말하면 입만 아프다.

<2013년 2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생각’이 같아지고, ‘가는 길’이 같아진다.
2. 세상의 짐은 보다 힘들지만, 주님의 짐은 가볍다.
3. 자기 욕성과 생각을 죽여야 인생의 짐이 가볍다.
4. 인생들이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천국에 갈 기회를 주신다.
5. 천국 실패자는 기회가 없어서 못 한 것이 아니고, 알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인생 혼자 할 것이 있고, 도와줘야 할 것 있다. 도와주어라. 때가 되면 가지고 있던 힘은 계절처럼 모두 사라진다.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어라.

7. 사람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의 정신과 생각도 하나님의 정신과 생각으로 창조되었다. 고로 행하면, 신같이 행해진다.
8. 자기가 할 일은 골고루 시간을 배치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9. 휴지도 불이 붙어야 타듯이, 마음과 정신에도 불이 붙어야 일이 타서 없어진다.
10. 제시간에 준비해 놓으면 제대로 할 수가 있다.
11. '할까? 말까?' 그 순간의 결정이 크다. 막상 행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작다.
12.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빨리 쉽게 하는지 연구하고 하면, 엄두가 안 나던 일도 한 몫 부담을 덜고 하게 되니, 일에 착수하면 자신 있게 하게 된다.
13. 일을 연구하여라. 사람들은 안 해도 될 일을 혀를 빼 내밀면서 한다.
14. 판단의 지혜다.
15. 정말 할 일인지, 속까지 까 보고 판단하고 하여라.
16. '환경'만 바꾸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마음'을 바꿔서 기쁨을 얻어라.
17. 환경을 바꾸고 눈으로 보는 데서만 기쁨을 얻으려면 매일 자주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마음'을 바꾸면서 마음에서 기쁨을 얻어라.
18. 마음을 합당하게 바꿔 가면서 마음에서 낙을 찾고 기쁨을 찾아라.
19. 사람이 색다른 환경에서 색다른 기쁨과 희망을 얻고 즐거워하려고만 한다. 그렇게는 매일 자주 할 수 없다. 그러니 생활 가운데 '마음'을 수시로 바꾸면서 마음에서 이상과 기쁨을 얻어라.
20. 사람은 '마음'으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21. 환경은 생각하면서 뇌에서 만들어서 보는 것이다.
22.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보인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언제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까지 가느냐.

<2013년 2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자기가 정한 시간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욕도 영도 손해다.
2. 하루는 피곤해서 새벽에 누워 있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더니, 월명동 앞산의 소나무가 하나씩 없어졌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모두 다 없어지는 영적 현상이 보였다. 이와 같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성전에서 수고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3. 누구를 막론하고 새벽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無)다.
4. 기도하는 자는 영계를 안 봐도 차고 넘치는 자다.

5. 새벽에 기도하면 그날 얻는다.
6. 기도했으나 별 표가 안 나도 새벽에는 꼭! 기도해야 된다.
7. 새벽기도가 최고로 힘들어도 새벽에 기도하면 최고로 얻을 것을 얻는다.
8. 선생도 잠언 말씀, 주일말씀, 수요말씀은 95% 이상 새벽에 받는다.
9. 성자는 새벽에 주신다. 고로 새벽에 깨닫는다.
10. 새벽기도 안 하는 자들의 혼과 영은 새벽기도를 하는 자들의 혼과 영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는 위치에 있다. 빛으로 보면, 별빛과 달빛같이 표가 난다.
11. 교회가 멀면 집에서 꼭 기도하고, 집에서 소리 내서 기도하지 못하면 속으로 해라. 그래도 주께는 그 기도 소리가 귀가 울리도록 들린다.
12. 새벽기도 하면, 그 혼과 영이 즉시 빛으로 나와서 활동한다.
13. 육이 활동하는 만큼만 혼도 영도 반응을 보이고 영향을 받는다.
14. 새벽에 받은 것을 낮에 행하기다.
15. 신입생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어 기도하게 하여라.

<2013년 2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깊은 잠언

1. 육신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듯, 마음과 정신세계도 행하면 되고 안 행하면 안 된다.
2. 마음과 정신도 자기 혼을 쓰고 행한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혼이 행하는 것이다.
3. 시간은 사랑이다. 시간 뺏기면 사랑 뺏긴다.
4. 결혼하면 딴 세상이다. 결혼 안 하면 딴 세상이다. 이 말은 삶이 다르다는 것이다.
5. 결혼하면 결혼한 자의 길을 가야 되고, 결혼 안 하면 결혼 안 한 자의 길을 가야 된다. 길이 전혀 다르다.
6. 다르다는 것은 그 실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7. 결혼한 자는 결혼한 상대와 사랑을 이루며 가고, 결혼 안 한 자는 결혼 안 한 자와 사랑을 이루며 간다.
8. 성자 주님과 사랑하는 자만이 그 삶을 안다.
9. 결혼하고 주를 사랑하는 삶과, 결혼 안 하고 주를 사랑하는 삶은 또 다르다.
10. 결혼하면 거의 배우자와의 사랑과 자녀와의 사랑이 중심이 된다. 결혼을 안 하면 거의 성자와의 사랑과 신앙의 자녀와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 그 길로 가진다.
11.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과 열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다. 길 자체가 다르다. 삶 자체가 다르다. 목적

이 다르니 삶도 다르다.

12. 구원을 위한 사랑과, 사랑을 위한 사랑은 다르다.

13. 성자와의 사랑은 구원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이루어진다. 자기 육적 사랑의 대상인 배우자나 자녀와의 사랑은 '영원한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니다.

14. 혈통적 사랑과 육적 사랑은 한계가 있다. '구원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영원하다. 구원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끊어지면 구원도 끊어진다.

15. 구원은 사랑하기에 이루어진다.

16. 구원받을 자도 구원자를 사랑하고, 구원자도 구원받을 자를 사랑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17.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18. 구원자가 사랑해 줘도 구원받을 자가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19.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다.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목숨을 내주셨다. 고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20. 구원자를 형식으로 사랑한 자는 영계에 가 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1. '형식적 사랑'은 썩은 밧줄을 잡고 절벽에서 오르는 격이라 끊어진다.

22. '형식'은 마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격이다.

23. '형식'은 마치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격이다.

24. '형식'은 몸만 왔다가 그냥 간 격이다.

25. '형식'은 행하지 않은 것이다.

26. '형식'은 빈손만 왔다 간 것이다.

27. 형식으로 주를 믿은 자 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28. '형식'은 헛짓이다.

29. 영적으로 보면, 형식으로 행한 자는 행했어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30. 예배를 형식으로 드린 자는 예배를 드렸어도 안 드린 것으로 되어 있다.

31. 하나님은 형식으로 행한 것은 안 받으시고 인정을 안 하신다.

32.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도 형식으로 하면, 한 것으로 안 되어 있다.

33. 성자 사랑도 형식으로 하면, 사랑한 것으로 안 되어 있다.

34. ‘형식’은 마음 없이 육신만 한 것이다.

35. ‘진실한 사랑’은 마음도, 생각도, 몸도, 혼도 다 좋아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밀착되어 한다.

36. 의무적으로 행하는 자도 있다. 일을 맡겼으니,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것도 형식에 속한다. 이같이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쪼개서 다른 것으로 취급하신다.

37. 진실로 행한 자만 진실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

<2013년 2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깊은 잠언

38. 삶이 다르니 생각을 안 한다. 관심이 없다.

39. 삶이 같은 것만 서로 느끼고 생각하고 하나 된다.

40. 누가 성자의 마음과 생각이 같고 삶이 같겠느냐.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사는 자다.

41. 모두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쁘다. 그러나 자기가 삶을 산 대로 그 영이 강 건너의 삶을 살게 된다.

42. 주와 합한 자의 삶은 다르다.

43. 구원은 주께 맡겨 놓고서 자기 삶을 살기 바쁘다. 구원은 주만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자가 주와 같이 이루는 것이다.

44. 구원은 주께 맡기고, 자기는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이루는 것이다.

45. 구원은 날마다 물 먹은 큰 백지장을 주와 같이 잡고 옮기는 격이다.

46. 어떤 자는 자기 구원을 주께 맡겨 놓고 자기 삶을 살다가 후에 와서 “내 구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묻는다. 찾아보니, 옛날에 맡겼던 상태 그대로 있었다.

47. 구원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자가 날마다 같이 다듬고 만들어서 빛나게 하는 것이다.

48. 자기 구원, 남 구원이다.

49. (주 편) 새것이라도 그것만 중심하면 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큰일을 못 한다.

50. (주 편) 헛것이라도 마음과 정신을 중심하여서 행하게 하여라.

51. 육신은 헛것이 됐어도 영을 중심하여라.

52. 육신이 새것이라도 영을 중심하여라.

53. 영혼 구하기다.

54. 집이 새 집이라도 집을 중심하면 안 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중심해야 된다. 이와 같이 육신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하여라. 영은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55. 영을 보고서 구원하자.

56. 밭을 보고 밭을 사느냐. 보화를 보고 사는 것이다.

57. 밭을 보고 월명동 땅을 샀느냐. 개발하기 위해서 샀다. 밭에 콩 농사가 잘된다고 샀느냐. 좋은 흙도 다 파 없애고 운동장과 잔디 성전을 만들려고 산 것이다. / 이와 같이 사람도 육신을 데려가려고 구원하느냐. 그 영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려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58. 같은 땅이라도 농사지을 자의 생각이 다르고, 건축가의 생각이 다르고, 개발할 자의 생각이 다르다. 사람을 놓고서도 그러하다.

59. 주가 쓰는 대로 귀하게 여겨라.

60. 자기 육신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더라도 주가 맡긴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영적으로 아주 미인, 미남이다.

61. 성자는 육과 영 양단으로 귀히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형식으로 적당히 하는 자는 미인이라도 기쁨으로 대하지 않고, 그 행위대로 대하신다.

62.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만 일으킨다.

<2013년 2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문제 해결 잠언

1. 어떤 문제는 한 가지 답으로도 해결되지만, 어떤 문제는 한 가지 답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2. 가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고 “왜 믿지 않을까?” 했을 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면, 모순되기도 하고 답이 확실하지 않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좀 그렇다. 또 “하나님이 믿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때로는 전도자도 보내셨는데 그가 안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도 답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믿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기를 원했는데, 왜 전능함으로 역사하여 지옥에 가지 않게 못하셨나?” 생각하게 된다. / 고로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지구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15억 명 이상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면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게 두시나?” 생각할 때, 그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에 대한 답은 적어도 일곱 가지는 된다. / 이와 같이 어떤 문제는 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이 있다.

3. “건강이 약해졌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운동을 안 해서, 게을러서, 체질이 원래 약해서, 먹는 것 때문에, 몸에 병이 생겨서... 등 답이 많다.

4. “영적이지 못하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도 안 해서, 말씀을 깊이 못 들어서, 말씀을 행하지 못해서, 구원자와 멀어서, 체질상 그렇다, 성격상 그렇다, 사명상 그렇다... 등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5. “새벽에 늦게 일어난다. 왜? 무엇이 문제일까?” 그 답이 많다.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해서, 게을러서, 일어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체질이 안 되어 있어서, 안 깨워 줘서, 자기가 책임을 못 해서... 등 답이 많다. 고로 새벽에 늦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답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된다.

6. 사람들이 “해도 안 된다.”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일곱 가지라 하자. 이 일곱 가지를 다 못 해서 안 되는 것이다.

7. 어떤 것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가 200가지가 넘는 것도 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야 허가가 난다.

8.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왜 우상 종교들과 기타 종교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고 물었다. 이에 성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네가 매일 기도해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그들도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행해야 된다. 구원은 구원할 자와 구원받을 자가 같이 행해야 된다.” 하셨다. 답은 하나가 아닌 연고다. 깨달아라.

9. ‘사랑은 자기만 사랑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만 사랑하면 짝사랑이다. 상대도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함이다.

10. 답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 답을 다 써야 된다. 이와 같이 올해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은 그것을 다 해결해야 그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11.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해결했기 때문이다.

12. 기도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

13. 한 가지 해 놓고 되지만 기다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을 해야 잘된다.

14. 인생 문제의 답은 하나가 아니다.

15. 인생 삶의 답은 수학 문제의 답같이 하나가 아니다.

16.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17. 수학 문제의 답은 하나다. 그러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정말 많다.

18. 집을 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수십 가지다.

19.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그것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해야 해결된다. 반드시 이 도(道)를 깨달아라.

20. 농부가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을 목적하고, 과일나무에 물을 주고, 퇴비를 하고, 잡초만 뽑아 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과일나무에 좋은 열매가 안 열렸다. 열매를 열긴 했는데 모두 작았다. 그 이유는 봄에 꽃을 따 주면서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다음 해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봄에 꽃을 따 주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또 좋은 열매가 안 열렸다. 열매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크기는 했다. / 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 다른 답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 품종이 문제였다. / 이같이 답이 여러 가지인 것은 그 답들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된다. / 인생 삶도, 구원도 휴거도, 변화되는 것도, 건강도 그러하다는 것을 성자 주께서 계시해 주셨다.

21. 세상에서는 시험을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과 성자가 사람을 쓰실 때는 ‘평소 생활’을 보고 결정하신다.

22. 독수리가 사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목표물을 정해야 된다. 둘째, 기회를 잡아 정확히 행해야 된다. 셋째, 쫓아가야 된다. 넷째, 목표물보다 더 빨라야 된다. 다섯째, 발톱으로 정확히 낚아채야 된다.

23. 사망에 빠져 사탄에게 잡혀간 영을 구해 오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기도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셋째, 성자께 간구하면서 그 보낸 자와 함께해야 된다. 넷째,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된다. 다섯째, 당사자에게 가서 말해야 된다. 여섯째, 그 당사자도 그 말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제야 그 영을 사망에서 데리고 나오게 된다.

24. 얼굴 피부가 좋아지려면,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잘 씻고, 영양을 주는 화장품도 바르고, 주름이 펴지는 화장품도 바르고, 기미가 없어지는 관리도 받아야 된다. / 이와 같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첫째,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어야 되고, 삼위가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둘째, 보낸 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된다. 셋째,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된다. 넷째, 삼위일체를 최고 우선권으로

사랑해야 된다. 다섯째,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여섯째,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일곱째, 자기도 구원받았으니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해 줘야 된다. 여덟째,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를 합당히 지켜야 그때 그때 성자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각자 행하여 얻게 된다. 아홉째, 하나님과 성자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된다. 또한 때에 따라 합당하게 행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회개해야 된다. / 한 가지 답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100%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25. 한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해당되는 필요한 것들을 다 행해야 성공한다.

26. 첫째, 하늘의 운도 타고 둘째, 땅의 운도 타야 된다. 그리고 셋째, 필요한 것을 다 행해야 된다.

27.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삶을 버티지 못하고, '희망'이 없으면 행하고 싶은 힘을 잃는다.

28. 한글 한 자를 써도 한 획을 가지고서는 글자가 안 된다. 어떤 글자를 쓰려면, 그 글자에 해당되는 지체들을 다 결합해야 된다.

29. 차를 만들 때도 크고 작은 수백 가지의 부품들을 다 조립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엔진을 넣고, 또 기름을 넣고, 또 운전해야만 차가 가진다. / 이와 같이 어떤 일도 그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공도 그에 따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성공한다.

30. 시간, 자료, 기술, 투자로 인한 성공이다.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다른 것은 다르다.

2.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은 서로 다른 세상이니 다르다. 고로 다른 것은 다르다는 것이다.

3. 서로 다르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4. 사람 세계도 서로 다르니까 다르다.

5. 남자와 여자도 서로 다르니까 다르다.

6.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

7. 여자끼리도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생활하며 존재한다.

8. 남자끼리도 서로 다르니까 다르게 생활하며 존재한다.

9. 두 가지로 쪼개서 보면 다르다.

10. 상대성으로 존재하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같이 아예 구조가 달라서 다르다. 그리고 여자끼리 혹은 남자끼리는 구조가 같지만 구조가 같더라도 서로 한 몸이 아니어서 성격, 생각, 정신, 행위 등이 다르다.

11. 서로 하나 되도록 해야만 마음도 생각도 같아지게 된다.

12. 만일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과 만물을 '개성'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존재하지 못한다. 서로서로 다르게 창조해 놓으셨다.

13. 남자와 여자를 서로 같게 창조해 놓았다면,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14. 상대적으로 자기와 모양과 형상과 구조가 다른 자를 좋아한다.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남자끼리,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적인 이성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고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상대적으로 다르게 창조해 놓으셨다.

15. 인간과 만물도 서로 좋아하며 하나 되도록 서로 다르게 창조해 놓으셨다.

16. 모두 같게 창조해 놓으면 단순한 세상이 된다. 또한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 고로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사랑도 없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된다.

17. 영계도 육계도 서로 다르다. 다르니 다르게 창조해 놓았다.

18. 육계를 보다가 영의 세계인 혼의 세계만 보아도 혼의 행실은 육의 행실과 다르다. 육은 자기가 손으로 과일을 가져가야만 과일이 손에 있는데, 혼은 길을 걸다가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손에 과일이 쥐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의 세계를 두고 “아무것도 아닌 허황된 세계다. 허망한 세계다. 정신없는 세계다.” 한다. 그것이 아니다.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다르기 때문이다.

19. 혼의 세계는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손에 쥐어진다. 육의 세계는 마음먹어도 직접 손이 가야 그것이 손에 쥐어진다. 이것이 다르다.

20. 다른 세계는 체계가 다르다.

21. ‘왜 육계와 영계가 다르냐?’ 하는 자는 남자가 ‘왜 나는 여자와 같은 구조가 없느냐. 이상하다.’ 하는 격이다. 육계와 영계는 엄연히 다르다. 육계와 영계는 다르기 때문에 영계에 가면 혼동되고 잘 안 믿게 된다.

22. 육은 세상에서 날지 못한다. 그러나 혼과 영은 날아다니고, 빛보다 빠르게 다닌다. 그러나 육은 전혀 다르다.

23. 영은 안 먹어도 존재하고, 육은 안 먹으면 죽는다. 전혀 다르다.

24. 인생 육신들은 같은 세상에서 살지만, 각각 다르게 살고 있다. 영들도 같은 영의 세계에서 살지만, 각각 다르게 살고 있다.

25. 육계나 영계나 모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있다.

26.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정한 기간까지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자기가 행한 삶대로 가야 된다.

27. 자기가 좋은 대로 삶을 산 자는 존재가 짧다.

28. 혼의 세계에서는 성자 주께서 각자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같은 길도 수십 가지로 보여 주신다. 헛갈리지 말아야 된다.

29. 육의 세계도 발전하고 영의 세계도 발전한다. 영의 세계도 점진적으로 발전하다가 고정되어 있기도 한다. 그러나 육의 세계의 사람들이 발전되니, 그 상대적 세계인 영의 세계도 계속 발전된다. 육이 행한 대로 영이 받으며, 주고받기 때문이다.

30. 육계도 발달, 영계도 발달이다. 발달되면 보다 편한 천국이다.

31. 사람의 마음은 ‘돈’과 같다. 돈을 쓰는 대로 자기 몸과 마음이 거기에 처해 좋아한다. 고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거기 빠져서 동성 사랑을 하게 된다.
32.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도 거기에 빠져 좋아한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을 투자하는 대로 거기에 빠져 좋아하며 살게 된다.
33.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벗어나면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34. 순리법이다. 질서법이다.
35. 상대를 좋아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이 있다. 법을 벗어나면 좋아할수록 존재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36. ‘성적(性的)’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결합적인 세계>이고, ‘정신적’으로 좋아하면 <수수(授受)적인 세계>다. 고로 무한한 힘도 받고 교류가 이루어진다.

<2013년 2월 15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잠언>

1. 네 작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2. 마음·정신·생각 모두 작은 데서 좌우된다.
3. 저울대가 평형일 때, 작은 콩 하나를 더 놓는 것에 따라서 저울대가 기울는 것이 좌우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작은 데서 좌우된다.
4.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처음에는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다. 작은 데서 그것이 초점이 되어 하느냐, 안 하느냐가 좌우된다.
5.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저울대가 평형이라 하자. 이때 누가 콩 하나만큼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말해 주면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칼날 넓이만큼 작은 마음이라도 그 작은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6. 작은 마음에서 운명이 좌우된다.
7. 잡아당기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 고로 사탄은 ‘마음’을 통해서 인간을 잡아당긴다.
8. 성자께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작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9.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안 일어나는 것도 작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10.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작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11. 부지런한 것도, 게으른 것도 작은 마음에서 좌우된다. *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결정하고, 그로 인해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큰 데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큰일이라도 큰 데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 좌우되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큰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큰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결국 큰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로 누구든지 이 도(道)를 알면 새벽기도도, 전도도, 성자를 사랑하는 것도, 말씀대로 사는 것도, 휴거되는 것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12. 처음에 출발할 때는 모두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 작은 마음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13. 작은 마음 같으나, 그로 인해 큰 것이 좌우된다.

14. 일을 저지를 때도 큰 것을 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고로 겨자씨 같은 작은 마음도 결론은 크게 된다. 고로 작은 마음도 그냥 두지 말고 다스리라는 것이다.

15. 작은 마음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선악을 쪼개서 다스려라.

16.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 대형 화재가 난다.

17.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처음에는 작은 마음이니 별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해 버린다. 그러나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시작하다가, 점점 온몸을 다해서 하게 된다.

18. 처음에 손가락이 가다가, 그다음에는 손이 가고, 그다음에는 마음이 가고, 그다음에는 온몸이 가고, 그다음에는 혼이 가고, 그다음에는 영까지 가게 된다. * 큰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불의한 일, 죄를 짓는 일도 처음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마음이라고 소홀히 여기면 큰일도 못 하게 되고, 혹은 불의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 오늘 잠언을 쓰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하다가 점점 주께서 깨닫게 하시니 계속해서 쓰고 있다.

20. 선생은 처음에 작은 수석을 손으로 들고 만지다가, 결국 130톤 바위까지 갖다 놓게 되었다.

21.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로 인해서 점점 행하여 바위도, 산도 옮기게 된다.

22. 겨자씨가 결국 큰 나무가 된다.

23. 작은 마음과 작은 행동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라.

24. 독수리가 긴 털 하나를 뽑다가 온몸의 털을 다 뽑고 전체 털갈이를 한다.

25. 작은 마음으로 인해 ‘미래’도 결정되고 ‘죽음’도 좌우된다. 그러니 자기의 작은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보고, 그 마음을 즉시 잡고 통치하고 주관해야 된다.

26. 사탄도 작은 마음을 주면서 유혹한다. ‘이 정도는 별것도 아니지.’ 하고 하게 한다.

27.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은 소홀히 여긴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이까짓 것 먹어도 안 죽으니까...’ 하며 먹는다. 그러다가 점점 더한 것을 먹다가 그것이 체질이 되어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28. 사람들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다. 고로 ‘이까짓 것 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있으랴?’ 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버릇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사고가 굳어져서 그에 속한 존재가 되고 만다.

29. ‘오늘 하루 새벽에 교회 안 간다고 해서 그리 큰 손해가 가랴?’ 한다. 그로 인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열흘이 되고, 열흘이 한 달이 되고, 계속 기도하지 않게 된다. 그런 생각은 다시는 하지 말아라.

30. 아예 하나님과 성자에 속한 것이 아니면 하지를 말아라.

31. 작을수록 무섭다. 왜인 줄 아느냐. 작다고 순간 해 버리기 때문이다.

32. 크면 오히려 힘들어서 안 하니, 걱정이 덜 된다.

33. 음식을 짜게 먹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짜게 먹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면역이 되고 중독이 되어서 직접 소금을 먹어야 짠 것을 느낀다. 자기는 중독이 되었기에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다.
34. 작은 일은 하기 쉬우니까 모두 의식하지 않고 한다.
35. 작은 습관이 큰 습관이 돼 버린다.
36. 모두 작은 데서 운명이 좌우되니, 작은 것부터 고쳐 나가야 된다.
37. 작은 것은 모두 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행하여라.
38. 작은 것이라도 100%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된다.
39. 성자 주님도 작은 데서 행하시니, 하늘 편의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하여라.
40. 작은 일이 밀려서 산같이 쌓인다. 작은 일도 매일 싹싹 해치우기다.
41. ‘작은 것을 현금해서 되겠느냐. 큰 것을 드려야지...’ 하다가 결국 못 하게 된다. 작은 것을 열 번 드리면 큰 것이 된다.
42. 월명동에 처음에는 혼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소나무를 심었다. 그러다가 결국 한 아름씩 되는 소나무를 심게 되었다.
43. 선생은 처음에 혼자 돌을 들어다 놓고 “야~ 멋있다!” 했다. 큰 돌을 갖다 놓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 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큰 돌을 갖다 놓지?” 하고 연구했다. 그러다가 작은 포클레인을 사용해서 2톤이 되는 돌을 갖다 놓았다. 그러니 모두 놀라서 좋아했다. 마치 큰 바위를 갖다 놓은 것같이 기뻐하면서 기적이라고 했다. 경사였다. 결국 130톤이 되는 큰 바위를 갖다 놓았다. 그러다가 흙을 파내고 땅을 파내서 500톤이 되는 <낙타바위> 대결작품을 만들었다.
44.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가 들락날락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지만, 결국 사람도 다닐 만큼의 큰 길이 되었다.
45. 소로(小路)길이 16차선이 되었고, 실 가닥만 한 나뭇길이 찾길이 되었다.
46. 토끼를 기르다가 양을 기르고, 가축들을 기르고, 가축 농장을 하게 되었다.
47. 개집을 짓다가 궁궐도 짓게 되었다.
48. 글씨 한 자를 잘 쓰다가 모든 글씨도 잘 쓰게 되었다.
49. 작은 힘을 모두 모아서 큰 산을 옮겼다.
50. 처음에는 선생 한 명이 성자 주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왔다. 그 사랑이 불씨가 되어서 민족과 세계에까지 번져 나갔고, 결국 섭리역사가 되었다. 고로 섭리역사로 온 자들 모두 1000년 성약역사의 주인들이 되었다.
51. 처음에 성자의 한 마디를 귀히 여기고 1년 동안 더 열심히 기도한 자들은 결국 큰 계시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집회까지 다니게 되었다.
52. 설교 한 번 하다가 유능한 설교가가 되었다.

53. 전도 한 명 하다가 전도 왕이 되었고, 더 많이 해서 유능하게 목회도 하게 됐다.
54.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다. 몸도, 영도 그같이 만들었다.
55. 편지 한 장 잘 쓰는 작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편지를 잘 쓰는 자로 만들었다.
56. 그 순간에 큰 종이가 없어서 30cm 되는 작은 종이에 성자 주님과 함께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었다.
57. 유초등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반사를 하다가, 중고등부를 맡고, 대학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고, 가정국과 장년부를 맡게 된다.
58. 유초등부를 가르치다가 장년부 목회도 하게 된다.
59. 작은 한 걸음이라도 계속 가면 100리도 간다.
60. 작은 마음이 큰 마음이 된다.
61. (그러니) 너의 작은 마음을 단순히 생각하지 말아라.
62. 너의 작은 마음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키울 것을 키우고 자를 것을 잘라서 만들어라.
63. 나무도 작다고 가지치기를 안 하면, 나무가 크면 아까워서 못 자른다. 그러면 나무가 멋이 없다.
64. 현미경으로 작은 세균까지 봐라.
65. 사탄은 큰 것을 가지고 꺾면 표가 나니까,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꺾면서 불의한 일을 하게 한다. 악한 자들도 그렇게 꺾면서 행한다.
66. 작다고 불의한 일을 용납하고 행하지 말아라. / 작다고 의로운 일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67. 부정부패하는 자들은 작은 것을 뇌물로 먹으니 못 발견한다. 그러나 전능자는 모두 파헤치신다.
68. 이성 생각, 성적(性的)인 마음은 늘 작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행실로 스쳐 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이성의 생각과 성적인 마음은 작더라도 아예 깨끗이 없애 버려라.
69. 야수는 새끼 때 없애고, 밭의 가라지와 잡초도 기를 것이 아니니 어렸을 때 뽑아 없애라. 매일 자기 마음의 가라지와 잡초 뽑기다.
70. 마치 글을 써 놓고 한 글자도 틀린 것을 용납하지 않듯이, 불의는 작은 것도 마음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야 의인이 되고, 성자 주님과 한 몸, 한 마음이 된다.
71. 작은 것은 세밀히 자세히 봐야 보인다.
72. 작다고 ‘이것쯤 한다고 일이 생기랴?’ 한다. 흑점은 점이랴도 행하지 말아라.
73. 작은 것 하나를 서운하게 생각하다가 큰 것도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러다 섭리사를 나가고 신앙이 쓰러지고 죽게 된다.

74. 모두 자기의 작은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다. 성자도, 분체도, 관리자들도 작은 마음까지 일일이 손을 못 대 주니, 본인이 작은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계시해 주는 것이다.

75. 작은 것을 이것저것 매일 행치 못해서 다음 차원에 못 올라가고 있다. 행하면 즉시 올라간다.

76. 작은 것도 행할 것이라면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행하고, 작은 것이라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행하지 말아라. 그럼 한 단계 더 높이 변화된다.

77. 절대 작은 것을 잘한 자가 결국 섭리사에서 큰일을 잘하게 되었다.

78. 올해는 자기를 완전히 만들어 마지막 3차 부활을 하여라!

<2013년 2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37.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서 편하게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 이것을 인생 목표로 생각하고 산다.

38. 창조주는 '창조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생이 태어나서 사는 목적을 '육의 세계'에 두지 않으셨다. 고로 육신의 기한을 짧게 하셨다. 고로 육신이 세상에서 물질, 환경, 안락,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얻어도 누릴 시간이 별로 없다.

39. 해가 지면 어두워지듯이, 때가 지나면 눈이 와서 세상이 뒤바뀌듯이, 세상의 것은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것도 나이가 들면 뒤바뀐다. 나이가 들면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좋아하던 것도 모두 뒤바뀐다. 그러기 전에 행해야 된다.

40. 월명동도 선생이 젊었을 때 행하여 만들지 못했으면 못 만들었다. / 신앙생활도 꼭 젊었을 때 행하여 자기 혼과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 놔야 된다. 나이 먹으면 뇌세포가 죽어서 마음과 생각에 불이 잘 안 붙고 잘 행해지지 않는다. 방금 한 음식이 맛있듯이, 젊었을 때 행해야 삶이 맛있다.

41. 신앙도, 세상의 삶도 젊었을 때 꼭 제대로 잘해 놔야 된다.

42. 나이 먹었을 때는 지난날 젊었을 때 해 놓은 것이 더욱 빛나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43. 젊었을 때는 산을 개간하여 각종 과일나무를 심고 희망의 불이 타서 열심히 하게 된다. 하지만 나이 먹으면 마치 해가 서산에 기우는 것 같아서 시장에 가서 과일 사다 먹고 말지, 산을 개간하여 과일나무를 심고 싶지 않다.

44. 해가 서산에 기울고 있는데, 산에 놀러 가고 냇가에 놀러 가느냐. 방에서 놀려고 집에 간다. 누릴 시간이 없으면 못 누린다.

45. 선생도 9세 때 기독교에 입문하여 5년 동안 민다가 13세부터 다른 차원으로 뛰었다. 남보다 5배, 10배 더 뛰어서 겨우 21년 동안 성자께 배우고 나와서 뛰면서 또 배워서 30대 초반에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의 지혜를 받아서 남보다 10배, 20배 더 뛰었다. 그래서 60대에 개인 - 가정 - 민족 세계형 섭리세계를 만들었다.

46. 해 그늘에는 나가서 뛰어도 곧 어두워진다. 새벽에 어두워도 나가서 뛰어라. 그러면 날이 밝아온다.

47. 10대부터 뛰게 하여라. 그래야 안 늦다.

48. 하나님의 창조 법칙의 때와 시간에 맞춰야지, 자기 시간에 맞추면 늦어서 가다가 만다. 건물을 짓다가 마는 격이다.

49.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누구든지 먼저 깨닫고 뛰는 자를 데리고 뛰신다.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50. 구시대는 아무리 커도 구시대다. 새 시대는 아무리 작아도 새 시대다. 구시대와 새 시대를 아예 비교하지 말아라.
51. 10000명의 할머니들이 아기를 낳도록 시도한다고 해서, 젊은 여자가 아기 낳는 것을 따라오겠느냐.
52. 할머니는 늙어서 아기를 못 낳듯이, 구시대는 늙어서 전도가 안 된다. 새 역사가 젊은 역사다.
53. 비원리, 비진리 종교는 가다가 구름같이 사라진다.
54. 선생이 젊었을 때 한국에는 크고 작은 이단 종교가 30개는 되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뛰다 보니, 그 이단 종교들이 거의 다 사라졌고, 이제는 몇 개 남았는데 그나마 뒤쳐져 있다. 남은 것도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55. 세계적으로 큰 것도 봄에 눈 녹듯이 다 무너졌다. 하나님을 벗어나니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 것이다. 눈은 흙이 아니다. 고로 때가 되면 녹아 없어진다. 세상만 서늘하게 하고 끝난 것이다.
56. 혼의 세계는 육의 세계가 아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혼의 세계를 중심하면 안 된다.
57. 육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가 좌우된다.
58. 지금 이 잠언은 혼계에서 육이 잠자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육의 세계에서 쓰는 것이다. 혼의 세계에서는 못 쓴다. 존재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59. 혼이 잘되려 해도 안 된다. 육이 잘해야 혼이 잘된다. ‘부엌’은 육의 세계다. ‘방’은 혼의 세계다. 부엌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야 방에서 음식을 맛있게 잘 먹게 된다. 방에서 맛있게 먹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
60. 육 같은 섭리인들이 열심히 해야 혼 같은 선생이 잘된다. 그리고 성자 주께 신령한 말씀을 받는다.
61. 좋은 말씀만 받아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좋은 말씀을 들으려면 잘해라.
62. 가령, 어떤 제자가 선생의 말도 안 들으면서 편지만 좋게 써 달라고 하면 좋게 써지겠느냐? 행한 대로 써 준다.
63. 잘 행하는 자에게는 편지도 잘 써 준다.
64. 자기 육신이 잘해야 자기 혼이 잘되고 좋은 말씀을 받게 된다.
65. 육이 그럭저럭 사는 자는 확인할 것도 없이 그 혼도 그런 처지에 놓여 산다.
66. 결심은 결실하게 한다.
67. 기어이 하는 습관이다. 집념이다. 행위와 실천이다.
68. 해 놓고서 성자도 분체도 찾아라.
69. 평소 자기 삶만 살면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애로 사항만 주께 물으면서, 주를 자기 몸종같이 사용한다. 그러니 축복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발전하지 못하고 그 위치에서 살면서 돌고 돈다.

70. 주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

71. 땅을 모르면 하늘도 모른다.

72. ‘땅’은 육이고, ‘하늘’은 영이다.

73. 하늘이 보낸 땅의 사람을 모르면, 하늘에 계신 전능자도 모른다.

74. 인간은 자기 개인의 살 길도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산다.

75. 땅에 사는 육은 인생 가을이 되면 낙엽처럼 사라진다.

76. 영을 위해 산 자만이 그 영이 구원받아 상록수같이 남아져 영원하다.

77. 육만 보고 먹고 입고 자고 즐기니, 결국 낙엽처럼 되고 만다.

<2013년 2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것을 가르쳐 줄 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할 수 있다.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2. 비유로 어떤 것을 깨우쳐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상대에 따라서 가르쳐 줘야 된다.

3. <재림과 휴거>,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해 가르쳐 줄 때도 비유와 각종 방법이 있다.

4. 가르쳐 줄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상대가 어떤 수준과 차원과 처지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서, 그에 맞게 말해 주는 것이다.

5. 말의 지혜, 표현의 지혜, 거기에 맞는 비유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도 표현하여라.

6.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소리만 친다고 해서 웅장한 것이 아니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다.

7. 그림을 그릴 때 크게 그린다고 해서 웅장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문제다.

8. 강의할 때도 오래 말한다고 해서 시대 말씀을 다 표현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다. 5분이라도 ‘핵’을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9. <재림과 휴거>, <성자와 분체> 강의도 ‘핵’을 지혜롭게 표현하면, 10~20분 강의로도 확 깨우쳐 준다.

10. 돈을 빌리러 가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도 돈 빌리는 핵심 내용을 말하지 못하면 그냥 온다.

11. 사람의 웃는 모습을 그리려면, 핵은 딱 두 군데다. 다른 곳은 웃는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핵은 ‘눈’과 ‘입술’이다. 이 두 가지 핵을 안 그리면 웃는 모습을 나타낼 수 없다. / 어떤 대화도, 설교도, 강의도 그러하다.

12. 원만 그리고 그냥 두면 그냥 원이다. 원에다 어떤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결정체 표현이 된다.

13. 말씀도 ‘핵’을 표현하지 못하면 열매를 열지 못한다.

14. 설교는 ‘핵’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15. 여자를 만나러 가던 남자가 가는 길에 남자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해 넘어갔다.
16. 강의하기 전에 먼저 ‘핵’을 정해 놓고서, 그 핵은 전초 하고 떠나야 된다.
17. 강의할 때 ‘핵’을 향해서 가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자들이 많다.
18. ‘핵’은 짧게, 확실하게다!
19. 어떤 것을 순간 그림으로 표현해서 보여 주려면, 1분 안에 핵만 그리면 된다.
20. 성자 주님의 설교는 1분이면 끝난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오래 말씀하신다.
21. 선생은 주일설교와 수요설교를 1초도 안 걸리고 받는다. 성자의 말씀은 딱 한마디다. 그 한마디를 깨우쳐 주려고 온갖 것을 다 동원하여 말하는 것이다.
22. 실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는 자, 듣는 자의 위치와 수준과 마음에 따라서 표현해 줘야 된다.
23. 마음이 약하고 감각이 무딘 자에게는 실체보다 더 부각시켜 말해 주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줘야 된다.
24. 감각이 예민하고 잘 느끼는 자에게는 시간도 없으니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 ‘핵’만 표현해 주고 가도 본인이 다 연결시켜 깨닫는다.
25. 자기에게 있는 것도 왜 표현하지 못하고 보여 주지 못하느냐.
26. 다른 집은 앵두나무 열매도 자랑하며 보여 주는데, 자기 집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도 안 보여 주면, 사람들은 앵두가 최고인지 안다. 사과 열매를 보여 주면, 그때부터는 앵두를 자랑하지 않는다. 사과 열매가 없는 자에게 이야기하며 모두에게 보여 주면 사과나무를 보고 좋아하며 그 주인을 따른다. / 이 시대 말씀도 그러하다.
27. 현시대 종교인들은 분재 그릇에 앵두나무를 심고서 자랑한다. 그런데 섭리인들은 금 그릇에 한 아름 되는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거기서 밥그릇만 하게 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여는데도 자기만 보고 기뻐한다. 금 그릇에 사과나무를 심어 놓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면, 누구라도 우러러본다. / 이 시대 말씀의 가치가 그러하다. 그러니 이를 알고 자랑하며 증거하여라.
28. 문어가 돌 틈에서 가만히 있으면, 꼴뚜기들이 문어 앞마당까지 와서 잔치한다. 문어 새끼들만 돌아다녀도 꼴뚜기들은 창피해서 다 사라진다. / 이 시대 말씀을 개인들에게 전해 보고, 청중을 모아 놓고 전해 보아라. 그러면 꼴뚜기 같은 구시대 이론과 자기 이론이 모두 사라진다.
29. 어떤 사람은 수석을 모으고 분재를 기르는 것이 취미였다. 친구들이 수석과 분재가 있다고 늘 자랑해서, 그는 기가 죽어 친구들 앞에 내놓지도 못했다. 그저 자기가 모은 수석과 자기가 기른 분재를 구경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석과 분재 작품전에 가서 자세히 보았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다음 작품전 때 자기 것을 갖다 냈는데, 그의 수석과 분재가 대작품으로 뽑혔다. / 이 시대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니 ‘설명의 지혜’와 ‘표현의 지혜’로 잘 전해 주어라.
30. ‘같은 말’도 누가 더 감동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빛나게 된다.
31. ‘같은 그림’도 누가 더 실감 나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빛나게 된다.
32. ‘행동’도 누가 눈에 띄게 더 행했느냐에 따라서 빛이 좌우된다.

33. 자꾸 해 보기다. 처음 했을 때와 나중에 한 것을 비교해 봐라.

34. 살아 있는 자가 느낀다.

35. 느끼지 못하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헛일이다.

36. 기성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새 시대를 느끼지 못한다.

37. 새 시대인들이라야 봐도, 들어도, 말을 해도 느낀다.

38. 살아 있는 심령을 가진 자가 젊은이다.

39. 새 시대, 새 말씀, 새 사람이다.

<2013년 2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구원하는 주는 울고 슬퍼하건만, 구원받을 자는 심정 모르고 웃고 있다.

2. (주 편) 혼이 느끼는 것은 마음으로 나타낸다.

3. (주 편) 경지에 도달하면 사탄은 그곳에 오지 못한다. 그곳에는 오직 나 성자와 내 분체만 있다.

4. (주 편) ‘말씀의 지혜’란 무엇이나.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다.

5. (주 편) 말씀을 받아들였어도 주를 떠나면, 생명권에서 끊어져 끝나게 된다.

6. (주 편) 남의 도움만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할 것은 네가 하는 것이 더 낫다. 네가 할 일은 나 성자가 너에게 역사한다.

7. (주 편) 자기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 정말 좋은 결혼 상대가 있어서 결혼시키기를 원한다면, 정말 ‘소개’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가 호감을 가지고 마음이 쏠려서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이 성사된다. / 나 성자도 내 분체도 제발 ‘소개’를 잘해 주어라. 소개자의 기술에 따라서 생명 구원이 좌우된다.

8. (주 편) 나의 분체인 너희 선생이 나 성자를 잘 소개해 줘서 “우와!!” 감탄하면서 “전능하신 성자와 나사렛 예수님은 다르구나.” 하고 “그 말을 들어 보자!” 하여,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섭리역사로 오지 않았느냐. 너희도 멋있게 권위 있게 나 성자와 내 분체를 소개하여, 듣는 자들이 호감을 느끼고 보화를 발견한 듯 따라오게 해 봐라.

9. (주 편) 증거할 줄 모르면, 오히려 더 등만 돌리게 한다.

10. (주 편)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증거하여라. 수다한 인구름이 따라오는 것을 증거하여라. “너보다 날아다니는 자들이 따라온다.” 하고 증거하여라. “너는 자가용이 있니? 나는 비행기 가지고 따라간다.” 하고 증거하고, “너는 토끼지? 이곳에는 사슴, 기린, 사자, 호랑이, 치타 등 각종 동물들이 따라온다.” 하고 증거하여라. 그러면 그 동물들을 구경하러 가자고 한다. 그때 멋진 동물들을 구경시켜 주면서 대화해 주면 따라온다.

11. (주 편) 시장에 가면, 말을 잘해서 옛날 핸드폰도 잘 판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가지고서도 소개를 제대로 못 해서 못 파느냐. 이 시대에 너희가 그러하다.

12. (주 편) 그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좋은 시대와, 전능자 성자와, 그 보낸 자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느냐.

13. (주 편) 이 세상에서 성자 본체보다 더 큰 자가 있느냐.

14. (주 편) 본체와 세상의 큰 자들은 태양 앞에 별들과 같다. 별들도 보러 모여들게 하는데, 왜 태양을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느냐. 능력을 보이면서 증거하는 것이다. 말 좀 잘해 보아라. 말을 못 하면 기도하여라. 그러면 능력이 나간다.

15. (주 편) 자기 애인이 제일 예쁜데, 소개를 잘 못 해서 뒷전에 있다가 오면 집에 와서 애인에게 무슨 말을 듣겠느냐. 자기 애인은 가수이고, 금메달을 딴 자이고, 미스코리아인데, 제대로 소개하지 못해서 다른 자들에게 놀렸다가 오면, 미인과 스타를 데리고 살 자격이 없는 자가 아니냐. 애인이 금메달을 딴 자라는 것 한 가지만 제대로 소개해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빛을 잃는다. 거기다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더 놀라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가수라고 하면, 그 노래를 듣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내 본체는 세계에서 최고로 차원 높은 시대 말씀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소개해 보아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능자 앞에 너를 소개할 자라고 해 봐라. 또 네 인생을 제일 잘 인도할 자라고 해 봐라. 소개할 것이 20개도 넘는데, 왜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느냐.

16. (주 편) “인류가 기대하고 기다린 자를 보여 줄게. 내 말을 들어 봐.” 해 봐라.

17. (주 편) 지구 세상에 ‘희귀 동물’만 있어도 구경하러 비행기 타고 먼 나라에 간다. 지구 세상에 ‘희귀 인생’이 있다고 해 봐라.

18. (주 편) 강의하는 자는 미인 발바닥만 보여 주는 강의 하지 말고, 미인 종아리 쪽 근처만 보여 주는 강의 하지 말고, 듣는 자가 핵을 보도록 강의해 보아라. 그러면 듣는 자가 못 간다. 그러다가 나 성자의 핵을 보여 주면, 배와 그물을 던지고 따라온다.

19. (주 편) 성자 본체와 본체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다. 먼저는 육 있는 본체요, 그다음에는 신령한 본체 영체 성자다.

20. (주 편) 말씀으로 시대를 잡아야 된다.

21. (주 편) 나 성자 이야기를 하여라. 그래야 나 성자가 역사한다. 배고플 때 어디 구경 가자고 하면 따라가겠느냐. 배고플 때는 식당 이야기를 하고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22. (주 편) 이 시대 특권 말씀은 오직 섭리사에만 있다. 섭리사 말씀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 해도 그곳에는 열매가 없다.

23. (주 편) 전도해다가 나 성자의 애인으로 만들어 준다는 심정으로 전도하여라. 내 본체는 지금도 편지해서 생명을 전도한다.

24. (주 편) 나 성자는 유익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는다.

25. (주 편) 나 성자와 일체 되어 크게 해 봐라. 그러면 혼자서 10명, 100명, 1000명 전도하게 된다.

26. (주 편) 한자리에 몇천 명씩 데려다 놓고서, 나 성자와 함께 외쳐 봐라. 그러면 청중들이 거의 감동받고 온다.

27. (주 편) 내 본체가 외치듯이 하면 청중이 전도된다. 전초 잘하고 외치기다.

28. (주 편) 먼저는 시골 타작마당에 곡식 단을 바짝 말리기다. 그다음에 타작이다. 그래야 알곡이 다 떨어진다. / <전초>는 ‘곡식 단 말리기’이고, <말씀>은 ‘타작하기’이다.

29. (주 편) 먼저는 나무 말리기다. 그다음에 불태우기다. / 먼저 전초로 말리고, 그다음에 말쑤으로 불붙이기다.

<2013년 2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30. 성자와 분체와 개통하여 소통하면, 죽은 영이 산 영이 된다.

31. 이 시대 사명자와 교통하지 않는 자는 뒷산 너머 신약 차원에서 사는 자다.

32. 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가려면, 성자와 분체와 교통해야 된다.

33. 섭리인들은 자기 생명을 좌우하는 설교를 듣고, 그때는 감동받고 며칠, 몇 주는 잘한다. 그러나 가다가 마는 자들이 많다. 이런 자들은 항상 고깃국을 끓이다가 마는 격이다. ‘꾸준히 매일’ 해야 자기 마음·정신·행동·성격이 변화되고, 혼과 영도 변화된다.

34. 세상에서 하듯이 하여 천국을 차지하겠느냐. 구원자를 전심으로 대하지 않고, 생각날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만 찾으면 되겠느냐. 같이 삶을 사는 자의 영만 온전히 변화된다.

35. 교통이 끊어지면 죽은 영이다. 영이 죽으면 괴롭다.

36. 온전한 사랑은 동등권의 사랑이다.

37. 사랑해서 결혼하듯이, 사랑해서 휴거시킨다. 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함이다.

38. 분체가 없으면 본체를 찾지도 못하고 본체와 연결도 안 된다. 분체 없이 행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39. 불과 불이 달을 때 용광로가 되듯이, 뜨거운 성자의 심정과 자기의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달아야 된다.

40. 형제를 우선 눈으로 보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느냐. 오직 성자에게 묻고 판단하고 행해야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

41. 쉬운 것은 저울에 달아 보고 판단하지만, 어려운 것은 주께 물어라.

42. 어떤 사연이 있어 그같이 했는지, 겉 보고는 모른다.

43.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함은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라 다 모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량배들이 다니는 길을 통과하려고 ‘지혜’로 다리를 절고 간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불구자’라고 판단한다. 다리를 절면서 그 길을 통과했기에 불량배들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가장 지혜로운 자에게 ‘병신, 불구자’라고 한 것이다. 판단을 잘못된 자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무지의 마음 불구자’다.

44. 최고의 스타가 있는데, 그와 사귀는 자가 그 스타를 너무 무시했다. 그래서 헛갈리게 말하고 행동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스타라고 하는데, 사귀어 보니 별 볼 일 없다.” 하고 떠났다. 최고의 스타는 자기를 무시하는 자를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쓴 것이다.

45. 어떤 재벌이 하찮게 변장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매일 낮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고 기록해 놓았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중에서 가장 인격적으로 자기를 대하고 자기 말을 잘 들은 자를 데려다가 집 한 채씩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 못 하게 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사람을 그릇 판단하여 진실한 사람들을 못 찾는다고 했다. 그중에서 입이 가벼운 자들은 좋아서 말을 했고, 재벌은 그들에게 준 집을 도로 뺏었다. 하늘 앞에 우리 인생들도 그러하다.

46. 꼴뚜기가 자기 족속들을 다 모아 놓고 “우리도 문어와 오징어처럼 멋있게 살자! 우리도 그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도입하여 전하자!” 했다. 그리고 문어들을 꺾어서 꼴뚜기 모임에 참석하게 했다. 역시 꼴 보이는 꼴뚜기의 행동이었다. 이때 문어가 물을 헤치고 나오니, 꼴뚜기들은 모두 흩어졌다. 이 시대의 꼴뚜기 족속들도 그러하다.

47. 인생을 판단할 때는 좋은 것을 다 내놓고, 모순을 다 내놓고, 하늘 저울에 달아 보고, 전능자가 말하고 허락한 다음에... 그제야 입 벌리기다.

48. 시체는 시체 편을 들고, 산 자는 산 자 편을 든다.

49. 악한 자는 악한 자 편을 들고, 선한 자는 선한 자 편을 든다.

50. 자기 근성을 못 고친 자는 못 고친 세계로 가서 살게 된다. 자기 근성을 고친 자는 온전한 성자의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51. 뱀이 뱀장어로 변하면, 뱀 취급을 안 받는다.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변화되면, 악한 취급을 안 받고 하늘 심판도 면한다.

52. 악평한 만큼 조건을 세워야 선 편에 오게 된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53. 오해를 받아 본 자는 오해받은 자의 마음을 풀어 준다.

54. 마리아를 이성 타락한 자로 본 자들은 유대 종교인들이었다. 그들은 마음의 창기들이었다.

55. ‘심판’은 마치 시험을 보고 나서 답안지를 주는 격이다. 행한 대로 주는 행사다. 어떤 자는 복을 받고, 어떤 자는 책망을 받고, 어떤 자는 심판을 받고... 행한 대로 갚아 주는 기간이다.

56. 영이 심판을 받고 사망권에 살고 있는데, 그 육은 세상에서 먹고 즐기면서 산다. 그러나 육이 죽으면, 그 혼이 영과 결합되어 사망권으로 가서 영원히 괴로운 고통을 받게 된다.

57. ‘자기 행위’로 인하여 매일 축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

58. 심판 때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형벌’을 준다.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공산주의 이론을 들어 보면 맞다. 그 이론은 맞는데, 공산주의 주관권 안에서만 맞다.

2. 악평자와 불신자의 말을 들어 보면 맞다. 그 말과 이론은 맞는데, 악평자와 불신자의 세계와 그 삶 안에서만 맞는 말이다.

3. 지옥에 간 자들과 사탄과 귀신의 말도 맞다. 그런데 지옥에서 사는 데에 맞는 말이다. 지옥은 법으로 거짓말을 참말로 정해 놓고 산다. 마음과 생각의 뇌 구조가 그같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살다가 자기 사고가 뇌에 절어 버린 것이다.

4. 민주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모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다. 민주주의는 독재주의처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우니까 유동성이 있기 때문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도 모순이다. 인간의 생각은 차원이 낮다.

5. 이단의 논리는 맞다. 그러나 이단의 삶에서만 맞지, 참단에서는 안 맞다.
6. 도둑과 강도의 이론은 그들 안에서만 맞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이론과 말씀은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맞다. 사탄은 삼위의 이론과 안 맞아서 항상 거부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지옥에서 못 살기 때문이다.
8. 짐승이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못 산다. 만일 짐승이 사람의 ‘불 문화’를 받아들였다 하자. 그렇다고 지능이 낮은 짐승이 먹이를 불에 구워 먹겠느냐. 만일 인간이 짐승에게 인간이 쓰는 도구를 줬다 하자. 차를 준다고 짐승이 쓰겠느냐. 비행기를 준다고 짐승이 쓰겠느냐. 좋다는 것을 알아도 못 쓴다. / 사탄도 하늘 편이 좋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하니 거부하고, 반대하고, 악평하고, 방해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9. 악평자, 악한 자,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삶을 살려면 힘드니까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욕한다. 그러나 의의 삶이 좋다는 것은 안다.
10. 세상 욕심, 물욕, 식욕, 성욕, 명예욕 다 버리고, 영을 우선권으로 하며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냐. 세상 욕구를 우선권으로 하고 사는 자들이 영을 우선권으로 하며 사는 자들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비방하는 것이다. / 세상을 우선권으로 하고 사는 자들은 자기 삶의 이론이 좋다고 하며 산다. 하지만 그들은 육과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매일 사망권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욕신이 죽으면 그 영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의 세계인 음부, 무저갱, 지옥에 간다. 거기서 사탄과 같이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된다.
11. 개미 이론은 개미에게 맞고, 코끼리 이론은 코끼리에게 맞다. / 이와 같이 무신론인 공산주의 이론은 공산주의자들에게만 맞다.
12. 정치 세계도 여당과 야당의 이론이 다르다. 위치와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13. 악인들이 하늘의 의인을 다룬다면, 악인 이론으로 다룬다. 그러고서 “우리는 정직하게 했다.” 한다.
14. 섭리 사람들도 “나는 소신껏 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삶과 자기 행위에 따른 자기중심적 이론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표준에서 벗어난 것은 다 문제다. 그리고 자기가 만족하는 정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그릇에 안 찬다.
15. 자기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잘했다고 해도 자기 생활과 삶의 이념이라면 문제다.
16. 잘못된 자들도 자기 체제의 삶에다가 하나님을 덧입혀서 나타낸다. 이것이 문제이고 모순이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 중심, 그리고 성자가 보낸 자를 중심하고, 자기는 행하기다!
18. 어떤 이론을 들으면, 그가 어디에 살면서 주장하는 이론인지 깨달아라.
19. 모두 이론만 듣고 “맞다. 따르자!”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옥의 이론인지, 공산당의 삶의 이론인지, 하나님을 떠나고 섭리사를 떠나서 주장하는 이론인지 알아라.
20. 이론은 들어 보면 좋다. 그러나 어떤 삶의 이론인지, 그것이 문제다.
21. 사탄은 거짓말을 하니, 다 맞게 말한다. 그러나 사탄 나라의 말이다. 고로 우리와는 하나도 안 맞다.
22. 사기꾼, 도둑, 조직 폭력배의 이론은 다 거짓이다. 그 이론은 맞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만 맞는 이론이다.

23. 속이는 자들은 100개의 말 중에서 99개를 다 옳게 말하고 하나를 속인다. 그러면 전체가 다 옳게 보인다. 그 하나를 가지고 거짓말하여 속이는 것이다.
24. 속이는 자들은 많이 안 속인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속인다. 그러면 다 속는다. 하나를 전체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25. 속이는 자는 ‘작은 것 99개’를 <참>으로 대한다. 그러니 다 믿었다. 그때 ‘큰 것 한 개’를 속여서 ‘거짓’으로 대한다. 그러니 작은 것 99개를 받고 큰 것 한 개에 속아서 1000배나 손해를 본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행위다. 사탄들의 행위다. ‘하나’라도 속지 말고, 확인해야 된다. 믿어 주면 속는다.
26. 사탄은 도와주고 속인다. 악한 자들은 과일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하여 키워 준 후에 과일나무가 다 크면, 어느 날 밤에 캐내어 가 버린다.
27. 성자 주님은 전능하시어 안 속으니, 항상 성자와 일체 되어 살아라.
28. 꿈에 사탄은 ‘동자(童子) 영’으로 나타나서 돕게 하며 속인다.
29.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쓰고 활동하기도 한다. 그러니 ‘설마 어린아이한테 당하랴?’ 하고 믿고 따라간다.
30. 사탄은 다 잘해 주고 마지막에 ‘하나’를 속인다. 그 ‘하나’는 우리의 육과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31. 지능 낮은 동물이라도 사람이 속여야 잡는다. 먹을 것을 주고 가까이 오게 하면, 동물이 가까이 온다. 동물이 가까이 와서 먹이를 먹고 피곤해서 잘 때, 그때 잡아 버린다. 사탄도 행악자들도 그러하다.
32. 성자와 일체, 분체와 일체다.
33. 이단의 이론과 말은 아예 듣지도 말아라. 말은 맞는데, 음부의 삶에 속한 말이요, 지옥의 삶에 속한 말이다.
34. 선생이 혼의 세계에서 어떤 자를 만났는데, 그는 자기 삶의 이론을 말했다. 그 삶의 이론이 너무 좋아서 “네가 사는 곳에 가 보자!” 했다. 그러니 그는 꺼려했다. 해가 질 때 숨어서 그가 사는 곳을 보니, 그는 사기꾼 마을로 가고 있었다.
35. 또 혼의 세계에서 어떤 자를 만났는데, 그는 “저기 가면 여자도 많고, 정말 아름답다.” 했다. 선생은 그 말을 듣고 “너나 가 보라. 나는 주님 찾으러 왔다.” 했다. 그는 “어? 그래? 주님은 저쪽에 있지. 내가 데려다 줄게.” 했다. 그래서 선생이 “내가 앞장서서 가라.” 했다. 그가 내 말대로 하기에 내가 그의 뒤통수를 걸어차고 땅에 처박으니, ‘사탄’이었다.
36. 또 혼의 세계에서 한 아기를 봤다. 그 아기가 기어가기에 불쌍해서 손을 잡아 도와주려 했다. 그때 느낌이 이상해서 순간 발로 밟으면서 “너,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말하면 밟아서 땅속에다 쑥~ 넣고 간다!” 하니, ‘유혹의 영’이었다. 발로 밟아서 땅속에다 쑥! 넣고 지나쳐 왔다.
37. 사탄은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쫓아다닌다. 배치를 받고 따라다니지만, 알면 안 당한다. 차원이 높으면 사탄이 안 건드린다.
38. 사탄을 모르면 실패한다.
39. 사탄보다 생각과 이념이 강해야 이긴다.

40. 인사탄은 인사탄 짓을 해도 모른다. 사탄은 사탄을 모르는 사람을 쓰고 행한다.
41. 사람이고 영이고 사탄을 의식하고 행하면 분별한다.
42. 머리통이 제대로 안 되었으니, 몸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43. 이단들은 머리통인 지도자가 제대로 안 되었으니, 몸통들인 따르는 자들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
44.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은 한 지체다. 한 몸이다.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된다.
2. 자기 시간에 맞추면 자기 일만 해진다.
3.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시간을 못 맞춘 자는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일만 한다.
4. 시간을 안 지키는 자는 거기에 대해서 시간의 칼자루를 뺏긴 자다.
5. 시간을 지키는 자만 시간의 칼자루를 손에 쥔 자다.
6. 시간의 칼자루를 쥔 자는 사탄이 찢릴까 하여 그를 가까이 못 따라다닌다.
7. 시간의 칼자루를 뺏긴 자는 사탄에게 쫓겨 다닌다.
8. 새벽에 제시간에 일어났더니, 섭리인들이 모두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영계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또 잠을 자 봤더니, 섭리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있었다. 그때 나와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자들 사이를 뚫뚫한 여인들이 막고 있었다. 모두 시간을 뺏기면 이러하다.
9. 제시간에 일어나니, 성자께서 하나씩 말씀하셨다.
10. 혼과 영을 중심하니 영계에서 혼과 영이 확실히 알곡같이 보이고, 육이 확실히 거죽으로 보였다.
11. 육을 중심하는 자는 육이 알곡같이 보이고, 혼과 영이 거죽으로 보인다.
12. 혼과 영을 중심해서 보면 육은 옷과 같이 보이고, 혼과 영은 귀한 몸과 같이 보인다.
13. 육을 중심해서 살면, 환각 작용이 일어나 육이 돋보인다.
14. 마음·정신·생각이 육을 중심하고 있을 때는 육이 성적으로 돋보이고, 육에 속한 것들이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보인다. 고로 육적인 것을 못 벗어난다.
15. 혼과 영을 중심해서 살면, 혼과 영이 더 빛나고 돋보인다.
16.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을 중심하면 육적인 삶을 살게 되고,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과 영을 중심하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17. 육에 속한 생각을 가지면 육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육의 것이 더 빛나게 착시가 일어나 보인다. 고로 육이 육을

향해서 행한다.

18. 혼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영체 - 혼체 - 육체는 금 - 은 - 동같이 확실히 표가 나게 차이가 있다.

19. 혼적 차원에서만 봐도 자기 육에게 별 호기심이 안 간다. 자기 육은 보통 집같이 보이고, 자기 혼은 별장같이 보인다. / 그러나 육에 속해서 육을 중심해서 보면 자기 육은 별장같이 돋보이고, 자기 혼은 보통 집으로 보인다. 자기가 중심을 두고 사는 대로 보인다.

20. 혼과 영에 속해서 살아야 이성에 호기심을 안 갖고, 육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21. 실상은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최고로 보인다. 그래서 그것에 빠지고 정신 나간 짓을 한다. 하고 나서는 “내가 미친 짓을 했어...” 한다.

22. 성자의 눈으로 보고, 혼적 차원에서 기도해 보아라. 그래야 금이 금으로, 은이 은으로, 쇠가 쇠로 제대로 보인다.

23. 육은 어린아이 같아서 늘 호기심에 빠진다. 속는다.

24.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을 중심해서 생각했다. 고로 모세를 별것도 아닌 자로 봤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기름진 가나안 땅을 별것도 아닌 땅으로 봤다. 신광야를 더 좋게 봤다. 고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스스로 거부하고, 신광야를 택하여 그 사막 땅에서 평생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살다가 죽었다. / 모두 육에 속해 판단하면 생각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별것도 아닌 것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다.

25. 기도하지 않고 육적으로 보니, 이것이 저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다시 기도하고 보니, 이것보다 저것이 훨씬 더 좋았다. 실제로 갖다가 확인해 봤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육이 좋아하여 택한 것은 겉은 금이고 속은 쇠덩어리였고, 기도하고 택한 것은 속이 금덩어리였다.

26. 육의 생각은 어린아이의 생각 수준이다. 혼과 영의 생각은 어른의 생각 수준이다.

27. 혼과 영에 속한 자가 육에 속한 자를 보면 어리석고 미련하다.

28. 지혜자가 되고 싶으냐? 혼에 속하고 영에 속하여라!

29.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냐? 육에 속하여라!

30. 혼을 중심하여라. 영을 중심하여라. 곧 본체를 중심하여라. 성자를 중심하여라. 본체와 일체 되어 하지 않으면 헛수고하고 고통받는다.

31. 육이 중심이 되면, 먹고 입고 자는 것과 세상 사랑이 중심이 된다. 성적 사랑이 목표물이 된다. 지구를 천국으로 보고 산다.

32. 육이 혼과 영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 세상에서 살아도 천국을 중심해서 산다. 영의 옷에 신경 쓴다. 영적 말씀에 신경 쓴다. 영적 일에 신경 쓴다. 사랑도 정신적 뇌 사랑에 신경 쓴다. 그리고 영이 영원히 같이 살 성자를 중심한다.

33. 육적으로 사는 자는 육이 늙어 가면서 1년생 잡초나 곡식같이 육으로 거두고 끝나고, 영적으로 사는 자는 영원하다.

34. 성적 사랑에 속해 살아도 겪을수록 환각 작용과 같고 착시 현상과 같음을 깨닫고 허무를 느끼고 돌아온다. /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적으로 육을 중심하여 살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35. 육은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를 못 가서 또 배고프다. 그같이 육은 허무하게 한계를 정해서 창조하셨다.

36. 육은 사랑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모든 것을 얻고 취하고 살아도 결국은 허탈하다. 육 자체로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37. 혼과 영을 중심해서 육신을 쓰고 살면, 영의 삶을 살기 때문에 허무하거나 허탈하지 않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이상적인 삶이다. 육의 의로운 삶과 수고를 가지고서 육도 영도 누리게 된다. /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지 않고, 바뀌서 살면 허무다. 허탈이다. 꿈과 같이 끝나는 삶이다.

38. 육을 우선권으로 행하는 자, 육을 중심하고 행하는 자는 망한다.

39. 혼과 영을 중심해서 행하는 자만 흥한다.

40. 혼과 영을 우선권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

<2013년 2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정신·생각이 뽀뽀이 서 있어야 각종의 것을 잘 느낀다.

2.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생각이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마치 소리는 들리는데 멀리서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

3. 마음·정신·생각이 서 있으면, 소곤거리는 실 가닥 같은 작은 소리라도 그 소리의 발음을 듣는다.

4. 마음·정신·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천 리나 떨어져 있는 것도 느끼면서, 그다음 단계인 영적 단계로 넘어간다. 그때 혼체가 영계의 상황을 직접 보고서 자기 마음에 그 느낌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혹은 천 리를 내다보고 아는 듯이 영적인 상황이 마음에 전달되기도 한다.

5. 상대의 생각과 일체 되었을 때는 상대의 마음과 행동이 자기에겐 전달된다.

6. 자기 최면에 들어가면, 상대가 생각한 것과 상관없이 그와 일체 된 것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자기중심, 자기 인식, 자기 의지 단계다.

7. 상대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뇌의 작용이 달리 돌아간다. 성자를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신랑’으로 생각하는 것은 뇌의 작용이 달라진다.

8. <구약시대 신앙>과 <신약시대 신앙>과 <성약시대 신앙>은 각각 뇌 작용과 행동이 달랐다.

9.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자녀권의 생각을 하고 사니, 뇌 작용과 행동이 ‘자녀’로 돌아갔다.

10. <성약 때>는 전능자 성자를 신랑으로 믿고 자신을 신부로 생각하고 사니, 뇌 작용도 행동도 다른 자들과는 달리 돌아갔다. 고로 구시대의 뇌 작용과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다.

11. 두 사람이 밭에 묻힌 보화를 캐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밭에 묻힌 것이 ‘은’인 줄 알고 파내니, 뇌가 그 차원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밭에 묻힌 것이 ‘금’인 줄 알고 파내니, 뇌의 작용도 구상도 행동도 달랐다.

12. <구약>은 ‘쇠’를 파내고, <신약>은 ‘은’을 파내고, <성약>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파내니, 뇌의 작용도 다르고, 마음과 생각도 다르고, 구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희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구시대인들과 새 시대인들의 뇌 작용과 행동은 월등히 다르다.

13. ‘음식의 맛’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입안의 혀끝에서 느끼지, 목 안에서 느끼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 위에서 느끼지 않는다. ‘말씀의 맛’도 시작할 때 입구에서 느끼게 해 줘야 된다.

14. 신앙의 시작인 신입생 때 깨닫고 느끼게 해 줘야 된다.

15. 무조건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깨닫고 느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음식도 첫맛에 느끼고, 사람도 첫인상에 느끼듯이, 말씀도 시작할 때 입구에서 느끼게 해 줘야 된다.

16. ‘과일의 맛’도 처음 한 입 물었을 때 그 과일의 맛을 못 느끼면, 못 느낀다.

17. 느끼게 하는 것은 ‘입구’에 있다. 혀의 입구는 혀끝이다. 손의 입구는 손끝이다. 말의 입구는 말의 시작이다.

18. 몸의 입구는 살가죽이다. 살가죽이 가장 감각이 예민하다. 살가죽 속에서는 잘 못 느낀다. 살가죽은 모두 신경으로 뒤덮여 있기에 잘 느낀다. 그 속은 살덩어리로 차 있다.

19. 말씀을 깊이 전한다고 해서 신입생들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다.

<2013년 2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사랑하면 나이 먹은 것과 상관없다.

2. 육으로 못 하면, 마음·정신·생각으로 한다.

3. 선한 마음·정신·생각은 선한 행위가 되고, 악한 마음·정신·생각은 악한 행위가 된다.

4. 전능자 하나님은 육도 보시고, 마음·정신·생각도 다 보신다.

5. 마음으로 했어도 의가 되고, 악이 된다.

6.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한 상대를 사랑했다 하자. 그러면 그 혼체도 그와 같이 한 것이 된다. 또한 생각은 육에 속해 있기에 행위로도 사랑한 것으로 본다.

7. 마음으로만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했어도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라서 그 썩은 마음이 죄가 되어 육체도 죄를 지은 것으로 본다.

8. 가령 1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 1년 동안 마음과 생각으로만 이성을 사랑하며 지냈다 하자. 육체관계를 한 번도 안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했어도 구원받을 시간에 마음이 썩어 썩는 행위를 했기에 구원받지 못한다. 자기 죄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 기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구세주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 사람은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자로 인해서 그만큼 구원을 받는다. 고로 누구를 믿고 사랑하며 사느냐가 문제다. 사람을 믿고 사랑해도 그에게 해당되는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못 받으면, 육체 도움과 육체 구원에 불과하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구세주로부터다.

10.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자다. 오직 구원자다.

11. 영원한 도움과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세상적으로 돕고 구원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다. 고로 육이 더 편하고 좋게 되는 것뿐이다.

12. 마음·정신·생각에 해당되는 구원, 혼에 해당되는 구원, 영에 해당되는 구원이 근본 구원이며 영원한 구원이다.
13.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만 온다.
14. 성자와 구원자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영이 사망으로 간다.
15. 구약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성의 누명을 씌우며 이단시하고 신약인들을 각종으로 핍박하고 악평해 놓고서는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하자. 그래도 용서를 못 받는다. 성자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고로 성자의 몸인 나사렛 예수님께도 회개해야 된다. 또한 신약역사로 와서 행위로 용서받아야 된다.
16.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성약역사를 펴 나가시며 행하시는데, 구시대 신약인들이 각종 말과 행위로 성약의 사명자와 성약인들을 욕하고 악평하며 각종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께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자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자에게 회개하고, 시대 사명자에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말로만이 아닌,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하기에, 성약역사로 와서 자기가 행한 짓을 회개하고 시대를 따름으로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17. 이성 죄를 지은 자도 말로만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가 끝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용서를 받아야 끝난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안 해야 끝나고, 반드시 죄의 탕감 조건과 형벌 조건을 세워야 끝난다.
18. 구원자도 말로만 세상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서 형벌을 받으며 세상 죄를 대신했다. 그것이 형벌 조건이다.
19. 개인도 죄를 지으면 말로도 용서받고, 행위로도 형벌 조건을 치름으로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20. 남의 죄를 대신하는 자가 말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빚을 갚아 주려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갚아 줘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그러하다. 섭리역사도 사명자가 시대의 죄와 따르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한 때 두 때 반 때를 네 번 거쳐 14년 동안 조건을 세워 주었다.
21. 남의 죄를 대신하는 것도 ‘때’가 있다. 사명자가 대신 조건을 세울 때는 사명자가 조건을 세워 주지만, 때가 지나면 본인들이 각자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조건을 세워야 된다.
22. 과거 이성 죄 지은 자들 기도하고 회개하여라. 용서해 주었다. 그런데 죄지은 자가 그 짓값 다 받지 않았냐. 이미 받았기에 사명도 그 위치에 있다. 죄지을 때, 그 위치에 탄 자 세워 탄 자가 하고 주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한 것이다. 경기하다 다치면 즉시 탄 자가 들어가는 이치와 같다.
23. 하나님과 성자 주를 ‘사랑’으로 불신한 죄를 지으면, 본래 계획한 대로 근본 복직은 안 된다. 그 위치는 뺏긴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현재 구원의 위치에서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다시 받아야 된다. 행한 대로다.
24. 죄지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 와서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도 주도 행하신다.
25. 축구장에서 옐로카드나 레드카드를 받거나 다치면,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나간다. 그리고 다른 선수가 들어가서 대신 그 몫을 다하며 뛰는.
26. 주님을 사랑하다가 다른 자와 사랑하고 있을 때, 그 기간에 하나님도 주도 다른 자를 세워 역사를 펴신다. 그 꼴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겠느냐. 와스디가 잘못하니, 그보다 더 날고뛰는 에스더를 데려다가 역사를 폈다.
27. 과거에 주를 떠나 이성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보아라. 회개하고 왔어도 겨우 그 급에서 사명을 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그 선을 잃고 평신도가 되어 살지 않느냐. 영계에 가 보면, 그 영이 사는 지역이 바뀌어 있다.

28.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 하늘의 사랑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여 성자와 자기를 구원한 자를 배신한 자들의 죄는 너무 크고도 크다.
29. 성자 주님은 말하기 곤란한 것은 각자 영계에 가서 자기 것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지 않으신다.
30. 과거에 사랑 죄를 지은 자는 가중된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만 겨우 사랑 구원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됐지?’ 한다. 자기 생각에 맞추지 말고, 주님 생각에 맞추어라!
31. 자기 생각은 항상 작다. 주님 생각은 항상 크다. 고로 주님 생각에 맞춰서 조건을 세워라.
32. 마치 보화를 캐내듯이 주께 끝없이 사랑을 행하여라. 그러면 보화 집을 짓고 보화 정원도 만든다.
33. 성자와의 사랑 보화가 있는데, 금반지, 금시계, 금 목걸이, 보물 장식에 만족하는 웅졸한 신부들이 섭리사에 태반이다. 계속해서 성자와 불같이 사랑하여 사랑의 보화 집을 짓고 사랑의 보화 정원까지 만들고 살아야 될 때다. 못 하면 영원히 후회한다. 지금 이때 성자와 그 보낸 자와 같이 살 때가 그같이 살 기회다.
34. 나이가 서른 살이 넘고 마흔 살이 되었는데도 신앙이 어리니, 성자와 그 분체 보기에 민망하다. 못 하면 2세들과 이제 온 자들에게 사랑이 넘어간다.
35. 이제 온 자들이 사랑의 보화 집을 짓고 정원까지 보석으로 꾸미고 사는데, 일찍 온 자들이 자기 화장대 위에 금반지와 금시계와 보석을 놓고서 겨우 보물 상자나 자랑하며 만족하고 산다. 그러다가 집과 정원까지 보석으로 꾸미고 사는 자들이 너희를 보면, 너희 꼴이 어떠하겠느냐.
36. 신부 시대를 만났으니, 모두 사랑의 보석 집과 사랑의 보석 정원을 만들어 놓고 살아야 된다.
37. 그런데 너희는 결방살이, 전세살이에 만족하고 살고 있다.
38.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랑’ 때문에 성자를 보내셨다. ‘사랑’ 때문에 구원자를 보냈다. 고로 너희가 그 목적을 이뤄 줘야 된다.
39. 신부 시대의 모든 교리와 배움과 기도와 감사와 전도와 관리 등 모든 것은 온전한 사랑 세계에 들어가 살기 위함이다.
40. 하나님과 성자 앞에 사랑의 근본을 모르고 살면, 종같이 일이나 하고 끝난다.
41. 잔칫집에서 일만 하는 자가 있고, 먹기만 하는 자가 있고, 춤추고 노래만 하는 자가 있다.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라. 섭리역사에서 일하면서, 오직 성자 앞에 온전한 신부가 되어라.
42. 이 시대에 성자 앞에 ‘사랑’을 못 잡으면, 마치 과일나무를 심고서 나무만 키우고 열매는 못 거둔 것과 같고, 농사를 짓고서 곡식은 못 거둔 것과 같다.
43. 신부가 신랑을 뺏기면, 만 가지 다 아무 소용없다.
44. 사랑으로 신랑 되신 성자를 잡아라. 그리고 매일 사랑으로 살아라. 그래야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세계에 간다.
45. 하늘나라에 가서 확인하려느냐. 자기 육이 땅에서 살면서, 삶의 행위로 매일 하늘나라를 확인하는 것이다.
46.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랑을 이루어라.

47. 적당하게 그저 자기식, 자기만족으로 사랑을 이루는 자는 다 실패한다.

48. 오직 '주 뜻대로'다! 오직 '성자 뜻대로'다! '성자 만족대로'다.

49. 자기만족이 아니다. 주체가 만족해야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2013년 2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사랑'을 세상에다 쓰면, 음식을 먹은 것같이 남는 것이 없다. '사랑'을 하늘에다 쓰면, 영원히 남는다.

2. '육신'을 세상 사는 데 다 쓰면, 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육신'을 하나님과 성자를 위해 쓰면, 영원히 영으로 남아서 하나님께 속해 살게 된다.

3.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어 거기 속해 살게 된다.

4. 땅에 속해 살기로 결정하고 살든지, 하늘에 속해 살기로 결정하고 살든지, 사람은 몸을 가지고 사니 삶의 수고는 큰 차이가 없다. 땅에 속해 살든지, 하늘에 속해 살든지, 육으로 사니까 비바람을 맞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땅에 속해 살면, 육신이 죽으면 끝나듯이 그 영이 사망 지옥으로 끝난다. 하늘에 속해 살면, 그 영이 영원히 지속되어 기쁨으로 산다. 마치 지구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진 자를 골라서 일생을 사는 것같이, 천국에서도 그러한 희망과 기쁨으로 영원히 산다. 이 세상의 말로 천국의 기쁨을 말하려면 남녀의 사랑 세계로 비유를 들어도 잘 표현이 안 된다. 이 세상의 말과 비유로는 천국의 기쁨을 표현할 수 없다. 가난한 자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해도 비유가 별로고, 어떤 시골 마을의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 커서 왕이 되어 부귀영화와 명예와 사랑을 다 누린다고 해도 천국의 기쁨과 그 영원함에는 합당한 비유가 되지 않는다. '영'은 본질상 육과 달라서 육보다 수천만 배 달리 느끼기 때문이다. '육'은 기껏해야 일생 동안 지구도 못다 다니고 죽는다. '영'은 일주일이면 우주 전체와 천국 세계 전체를 다 돌아다닌다. 세상 수학으로는 영에 대한 계산이 안 나온다. 고로 세상의 어느 극적인 비유를 들면서 영과 천국에 대해 말해도 바닷물을 웅달샘으로 비유하는 격이다.

5. '사랑'을 육적으로 쓰면 웅달샘같이 쓰이고, '사랑'을 영적으로 쓰면 바닷물같이 영원히 크게 쓰인다. 그래도 비유가 만족스럽지 않다.

6. 네 사랑을 하늘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영원히 남는다. 또한 세상에서도 그 사랑의 대가를 받는데,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쓰는 자와는 비교가 안 된다.

7. 하루 품삯을 똑같이 두 사람에게 주었다. 한 사람은 그 돈을 관광지에 가서 구경하고 먹는 데 썼다.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이 끝나고 해가 지니 모두 끝났다. 이와 같이 세상을 위해 사랑을 쓴 자는 인생 해가 지면 사랑이 끝나고, 사랑하는 것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다. 다른 한 사람은 그 돈으로 개와 닭을 사 왔다. 해가 가고 시간이 갈수록 개와 닭을 키우는 데 소망과 희망이 연속됐다. 그 개와 닭이 새끼를 낳아서 몇 년 후에는 수십 마리가 되었고, 또 몇 년 후에는 수백 마리가 되었다. 일생 동안 그렇게 계속 수가 불어나서 거부가 되어 누리고 살았다. 이와 같이 하늘을 위해 사랑을 쓴 자는 영원한 소망이 지속되어 가고 영원히 남는다.

8. '시간'도 하나님과 성자를 위해 쓰면, 영원한 세계의 시간으로 남아져 늘 소망이 이어진다.

9. '자기 소질과 재질'도 하늘을 위해 써라. 그래도 육이 즐기고 쓰니, 세상을 향해 즐기고 쓰는 것보다 기쁘고 즐겁다.

10. 모르면 금 항아리를 질그릇같이 쓰면서 고생한다. 아는 자가 이상세계를 누린다.

11.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두 다 똑같이 빈손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되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됐다. 왜 그러하겠느냐. 자기 몸을 금 항아리로 알고 가치 있게 쓴 자는 잘됐고, 자기 몸을 질그릇으로 알고 쓴 자는 잘 안 됐다.

다는 것이다.

12. 자기 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

13. 자기 몸이 얇힌 자도 살 길을 알면 잘 산다.

14. 인간은 저마다 귀한 보화다. 귀한 자가 그 귀한 보화를 귀히 쓰게 된다.

15. 귀한 씨가 땅에 떨어지면, 뿌리는 땅에 박히고 새싹이 나서 열매가 열리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인생도 세상 땅에 뿌리를 박고 먹고 살면서, 하늘 싹이 나서 하늘 열매인 영혼 열매를 맺어 이상세계를 이뤄야 된다.

16. '인생'은 하나님이 세상 밭에 뿌린 영원한 씨다.

17. 성자는 주인이 되어, 세상의 밭 주인과 함께 세상에 뿌린 씨를 가꾸러 오셨다.

18. 인생을 살면서 하늘 열매인 영혼 열매를 맺으면 영원한 축복이고, 인생 밭이 엉겅퀴 밭이 되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

19. 네 인생을 매일 가꾸고 관리하여라.

20. 하루를 일생으로 보고 가치 있게 살아라.

<2013년 2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선조의 공적으로 수천 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2. 가령 할아버지가 토지를 사 놓은 것과 사과나무 등 각종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수고하여 남겨 놓은 것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정한 기간까지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선조의 의의 공적으로 그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누린다.

3. '수천 대까지'란, 구약 4000년 - 신약 2000년 - 성약 1000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다. 새 시대가 오면 바뀐다.

4. 선조의 의의 공적은 신앙적 혈통, 혹은 육적 혈통에게 그 축복이 돌아간다. 조건을 세우는 자에게로 선조의 의의 공적이 모두 돌아간다.

5.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신약 기간까지 축복을 받았다. 성약시대는 다시 오신 성자의 사랑과 그 분체의 희생과 의로 성약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

6. 아브라함의 의의 공적은 그 직계 자손들인 이삭 - 야곱 - 요셉에게까지 흘러갔으며, 그 축복이 구약권까지 갔다.

7. 부모가 세운 공적을 자녀들이 받듯이, 시대 사명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운 공적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된다.

8. '육적 재산의 공적'은 당세에 해당되고, 당세 때라도 못 하면 상실한다.

9. '신앙의 공적'으로 받은 것은 영원하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이 죽으면 못 받는다.

10.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살아 있는 자만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11. 잠자는 자는 원위치에서 산다. 고로 산 자가 먹고 누려도 잠자는 자는 모른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신앙

의 잠을 자는 자도 그러하다.

12. 신앙의 잠을 자면 기다린 메시아가 와서 옆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림과 휴거 역사, 곧 천년왕국 역사를 펴도 모른다.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른다.

13. 뇌에 인식을 못 하고 보면 다른 생각으로 보니까 제대로 못 보는 것이다.

14. 자기가 먹고 누리고 있어도 인식을 못 하여 모르면, 과거에 자기가 원하고 기도한 것을 얻어서 먹고 누리는 것인지 모른다.

15. 생각의 인식이 그릇된 상태에서 행하면, 해도 전혀 모른다. 그러니 그릇된 사고를 가진 자들은 옳은 사고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16. 눈은 하나의 기구로서 보는 역할을 할 뿐이지, '생각'으로 보는 것이다. 눈을 뜨고 봐도 생각을 제대로 못 하고 보면 소용없다. 눈을 감았어도 생각이 살아 있어 신령하면, 다 느껴서 알게 되고 4차원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게 된다.

17. 생각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고 행하면 전혀 모른다.

18. 어떤 사람이 시장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찾으러 갔다 하자. 찾는 애인이나 보이지, 기타 다른 것들은 눈으로 스쳐 가기만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 것이다.

19. 설교를 들을 때도 2~3시간을 들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귀는 하나의 도구로서 듣는 역할을 할 뿐이지, 살아 있는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20. 복권을 산 자들이 복권 당첨 번호를 불러 줄 때 자기 것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집중하여 듣듯이, 말씀도 그와 같이 들어야 된다.

21. 사람은 '마음·정신·생각'으로 살아간다.

22. 생각이 딴 데 있으면 신이 불러도 안 들린다.

23. 정신을 집중하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많은 것이 마음에 깨달아져 온다.

24. 정신이 죽으면 그만큼 죽은 인생이다. 육이 팔팔해도 정신의 강도가 약해지면, 마치 겉모양은 새것이지만 엔진이 약한 차와 같다.

25. 마음·정신·생각이 약하면,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못 느낀다.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26. 꾸벅꾸벅 조는 자는 옆에서 잔치하고 먹고 마셔도 꿈속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옆에서 자기들이 기다린 새 역사를 진행하는데도 신앙의 잠을 자거나 졸고 있으니 모르는 것이다.

27. 이 시대의 것은 이 시대에 다 진행한다. 환난이 오든지 비바람이 쳐도 겨울은 가고 그때에 맞춰서 봄과 여름은 진행된다.

28. 유대 종교인들이 신앙의 잠을 자고 인식관의 잠을 잘 때,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따른 자들은 역사를 펴고 끝났다. 유대 종교인들은 그때 몰라보더니 지금도 모른다.

29.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은 전능하신 성자가 오셔서 옆에서 새 역사를 펴도 모른다.

30. '비유의 실체화'로 역사를 펴 나가니 모른다.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 비유를 풀면서, 그 비유를 푼 대로 역사를 펴 나간다. 그러나 그들은 비유를 풀지 못하고 '비유 자체'를 실제로 믿고 사니 모르는 것이다.)

31.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비유'다. 이 비유를 실제로 풀면, '전능하신 성자가 오셔서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펴신다.'라는 말이다. '구름'은 첫째, 성자의 육이 되는 자다. 둘째,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다. 그러나 인식을 달리하고 있으니, 봐도 모르는 것이다.

32. 할머니가 옛날 언어대로 "오늘 가마 타고 마차 타고 놀러 가자." 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차를 타고 먹고 즐기며 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러니 손자들이 "오늘 아침에 할머니가 말한 대로 왜 가마 타고 마차 타고 놀지 않았어요?" 했다. 할머니는 옛날 언어를 배워서 '가마, 마차'로 말했던 것이다. '가마, 마차'를 현대 언어로 말하면 '승용차'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온종일 타고 다녔어도 모르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맞으면, 보람도 없고 기쁨도 없다.

33. 사랑하는 자를 맞은 자도 자기가 원했던 자라는 것을 모르고 맞은 자는 3년, 7년, 10년을 살아도 늘 아쉬워하며 보람을 못 느낀다. 실감도 안 난다. 그 사람은 늘 말하기를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었어..." 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했던 그 사람이었다. 알고 난 후부터는 그때부터 즉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았다.

34.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았겠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일부분만 믿고 살았기에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도 보람이 없었다.

35. 메시아와 같이 살아도 누구든지 자기가 믿고 행하는 만큼 보람이고 축복이다.

36.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가 절대 믿고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대로 잘되고 보람과 기쁨과 희망을 누린다.

37. 어떤 사람이 꿩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늘 먹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친구들이 한 톨 쏜다고 해서 10명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닭볶음탕을 먹었다. 친구들이 "어때? 맛있어?" 하고 물으니, 그는 "닭고기이니 닭고기 맛이네. 토종닭 같아." 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너는 닭고기를 많이 먹어서 뭘 먹어도 닭고기 맛이 나는구나. 다시 먹어 봐. 무슨 맛이야?" 했다. 그러니 그는 "평소 먹는 닭고기 맛이네." 했다. 열 번을 물어봐도 그는 닭고기 맛이라고 했다. 다른 아홉 명의 친구들은 모두 꿩고기 맛이라고 했다. 어떻게 꿩고기 맛인지 알았을까? 꿩고기라는 것을 알고 먹으니 안 것이다. 친구들이 "우리는 꿩고기라는 것을 알고 먹었어. 너 꿩고기 먹은 거야." 했다. 그랬더니 그는 "닭탕이 아니고 꿩탕이야?" 했다. "네가 평소에 꿩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한 톨 쏜 거야. 제일 맛있게 먹어야 할 네가 닭고기로 알고 먹었으니 무슨 보람이냐? 다시 사 줄게." 했다. 그리고 다시 꿩탕을 한 그릇 시켜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한 숟가락을 먹어서 "와! 짹짹하다. 맛있다! 꿩고기라서 닭고기와는 확실히 달라." 했다. 이에 그제야 사준 친구들이 보람을 느꼈다. 생각과 인식관이 그리 중요하다. 너희도 '성자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선지자는 누구인가? 본체는 실상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서 맞고 행하여라. 왜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느냐.

38. 기성인들은 5년, 10년, 20년씩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면서, 단상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며 열을 내면서 외치고 있다. 매일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주무르고 만지고 따먹으며 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 선악과를 옛날 에덴동산의 한 과일로만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경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시겠느냐.

39.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여 캐냈다. 이에 다른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그까짓 것 캐다가 뭘 하려 해? 귀신 따라와. 버려!" 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같이 캐자." 했더니, "너나 해. 난 얼마 전에도 밭

을 파다가 시퍼런 그릇들이 나와서 기분 나빠서 다 깨부수고 다시 묻었어. 발을 파려다가 섬뜩해서 다른 데를 팠어. 자네도 다 깨부수고 다시 깊이 묻게나.” 했다. 모르면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다 깨부수고 “속 시원하다!” 한다. 보화를 캐낸 자는 그것으로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이에 발을 같이 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물었다. 보화를 캐낸 사람은 “그때 발에서 캔 보화를 팔아서 30억을 벌었어.” 했다. 그런데도 “이 사람, 나를 왜 속이는가?” 하고 안 믿고 “그때 내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했나?” 하니, “자네 말이 안 믿어져. 나도 발을 팔 때 그런 것이 나왔는데 다 깨부셨다고... 내가 몰라서 미친 짓을 했어.” 하며 평생 아까워하고 슬퍼하며 살았다. 이가 누구냐? 구시대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다. 주를 알았으나 반대하고 믿지 않다가 후에 새 시대로 돌아온 자는 그래도 깨뜨린 도자기라도 팔아서 쓴 자다.

40.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나? 모르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축복이다.

41. 하나님의 축복은 수십억의 가치가 나간다.

42.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43. 욕으로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도 못 간다. 혼과 영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된다.

44. 욕으로만 해도 안 되고, 영으로만 해도 안 된다. 둘이 일체 되어 같이 해야 된다.

45. 한 번 지옥에 가면 못 나온다. 지옥에 갔다가 나온다 해도 버려 버려서 그때는 아무 소용없다. 마치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아서 못 느낀다. 영원히 그같이 살아야 된다.

46. 몇 사람이 한 곳에 가 보니, 금을 파는 굴이었다. 몇 명이 굴에 금이 있는지 사방을 둘러보니, 굴 벽에 금이 가 있었다. 금세 무너질 것 같았다. 굴이 무너지면 굴 입구가 다 붕쇄될 것 같았다. 그래서 한 사람이 즉시 “저기를 봐라. 굴 벽이 점점 금이 간다!” 했다. 그제야 모두 보고 나와서 굴 입구 앞에 있는 윗길로 나와 10m 떨어진 곳으로 피했다. 그 순간 굴이 무너지면서 산까지 다 무너졌다. 굴 입구 밑으로 피했으면 같이 묻힐 뻔했다. / 미리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축복은 미리 알려 주는 것이다.

47. 돈이나 어떤 선물보다 큰 축복이 있으니, 죽음의 위험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알려 주는 것이다.

48. 그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축복이다.

<2013년 3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잠은 수면제다.

2. 잠도 중독된다.

3. 잠은 수면제를 먹은 것 같아서 눈을 뜨고 의식이 있었을 때 즉시 일어나야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4. 잠도 중독성이 있다. ‘중독성’은 이미 몸에 뱃다는 것이다. 고로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어떤 한계선을 정해 놓고 거기까지만 자는 것이다.

5. 인간의 몸도 마음도 길들이는 대로 된다.

6. 길을 닦는 대로 된다. 사람의 몸도 마음도 행하고 닦는 대로 된다.

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획으로 마음과 몸을 닦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남아진다.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닦으면 일생밖에 못 써 먹는다.

8. 마음과 생각과 몸은 닮는 대로 만드는 대로 써 먹게 된다.
9. 음식도 중독성이 있다. 짜게 맵게 먹는 것도 중독되어 체질이 된다.
10. 성적인 것도 체질이 되면 중독된다. '중독되었다' 함은 '습관이 되었다', 혹은 '버릇이 들었다' 함이다.
11. 도둑질도 중독된 것이다.
12. 생활 속에서 중독된 것들이 각종으로 많다.
13. 노는 것도 습관이 되고 버릇이 들고 체질에 배면, 조금씩 고치든지 과감히 잘라 버리든지 해야 된다.
14. 드라마 연속극과 각종 TV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놀이, 각종 음란물 은 모두 하다 보면 중독된다.
15. 선생은 TV프로그램을 거의 안 본다. 그 시간에 전능자에 대해 듣고 배우니 글 쓰는 것도 발달되었다.
16. 세상 것에 빠져서 살면, 시간이 부족해서 천국에 가다가 만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같이 자기에게 손해 가게 한 일은 없다. 모두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못살고, 고생하고, 실패한다.
17. 하루 한 시간만 필요 없는 일에 쓰거나 놀면 엄청난 손해다. 그것으로 크게 성공할 것을 작게 성공한다.
18. 선생은 하루의 1분도 큰돈으로 보고 필요 없이 소모시키지 않으니, 엄청난 일을 한다.
19. 다른 사람이 생활하는 것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세월 다 간다. 그것에 중독되면 수면제를 먹은 사람과 같아서 잠만 자고 끝난다. 정말 귀하게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같이 산다.
20. 발의 보화를 발견하여라. 자기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지, 왜 남이 성공하며 가는 길에 한눈을 팔고 구경하다가 자기 황금 인생을 찌꺼면서 보내느냐.
21. 모든 인생들은 시간을 탄 데 써서 실패하는 것이다.
22. 각종 TV프로그램과 각종 놀이, 세상 사랑, 먹고 놀고 즐기는 것은 모두 육적 쾌락에서 끝난다. 일순간 즐기고 끝나 버린다.
23. 잠에 중독되어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을 다 뺏기면, 잠으로 시간을 날려 버린다. 그러면 낮에만 살다가 죽는다. 짧은 인생 살다가 죽는 것이다.
24. 밤 시간과 새벽 시간을 아껴서 죽지 않을 만큼 3~4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을 쓰면, 그 시간을 아낀 만큼 15년 더 사는 것이 된다. 또한 낮에도 놀면서 그냥 보내는 3~4시간 더 아껴서 쓰면, 그 시간을 아낀 만큼 15년 더 사는 것이 된다. 이같이 하면 인생 30년 더 사는 것이 된다. / 오래 살려고 하지만 말아라. 사람은 인생 수한이 정해져 있다. 오래 살고 싶어도 그렇게 오래 못 산다. 모두 잡시간을 쓰지 말고 시간을 제대로 써라. 그러면 오래 사는 것이 된다.
25. 하루는 24시간이다. 하루를 남보다 더 오래 살려 한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겠느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뛰어라. 오직 그렇게 해야만 오래 사는 것이 된다.
26. 인생이 늙어서 오래 살아도 나이가 먹어 노인이 되면 거의 죽어 사는 격이 된다.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눈만 뜨고 숨만 쉬고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27. 발달된 사람은 1시간만 행해도 10일 행한 것같이 한다. 그러니 발달된 사람 앞에 놓고 안 하는 사람은 1시간 허송세월한 것이 10일 허송세월한 격이다.

28. 새벽의 1시간은 낮에 몇 시간, 혹은 온종일 해도 못 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

29. 젊었을 때 1년은 일생 동안 못 할 일도 하는 시간이다.

30. 선생은 젊었을 때,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 주가 시키시는 일만 일체 몰두해서 했다. 젊은 청춘을 신의 시간으로 썼으니, 커서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 젊었을 때 할 일을 다 커서 하면, 저녁 때 일한 격이라서 결실도 못 하고 죽게 되어 영광을 못 누린다.

31. 인생 0대 때부터 가르쳐서 빨리 뛰게 만들어라. 10대부터 뛰면 영광의 열매를 거두어도 자기 당세에만 쓰다가 간다.

32. 늦으면 끝난다.

33. 빠른 자만 성공하고 영광을 누린다.

34. 늦게 하면 못 한다.

35. 필요 없는 것에 중독되어 잠자지 말아라. 모르는 삶은 잠자는 삶이다.

36. 인생 잠에서 깬 자는 다른 세상에서 사는데, 인생 잠자는 자는 세상에 중독되어 잠들어 살다가 인생 다 간다. 하루 같은 인생이다.

37. 영원한 세상의 것을 발견하여라. 하나님이다. 구원자 성자다. 그 보낸 자 메시아다.

38.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잠자다 끝난다.

39. 남들은 잔칫집에서 먹고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잠자다가 해가 넘어가 버린다. 남들은 하늘 잔치 역사에서 먹고 누리는데, 자기는 세상 것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런 자들이 대부분이다.

40. 영생을 얻는 데 중심을 뒀라. 세상의 것들은 먹고 마시고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영생길을 가는 데 써라. 그 힘이 이 시대에 자기 영혼을 휴거시키는 데 써라.

41.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사막의 그늘에서 잠을 자다가 사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혼자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 자와 같이, 그 영혼이 죽음에 처해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42. 세상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일하는 장소다.

<2013년 3월 1일 자체 금요기도회 잠언> 중요

1. ‘눈’으로 보고 알아채고, ‘귀’로 듣고 알아채고, ‘마음’으로 느끼면서 알아채라. 눈과 귀와 마음은 삼위일체다.

2.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들어서 모를 때는 ‘마음’으로 느껴서 알아야 된다.

3. 마음의 본체는 ‘혼체’다. 고로 혼이 발달돼야 된다. 혼이 발달되려면, 기도하며 성자와 일체 되어라.

4. 사람들은 확인하지도 않고 들은 대로, 문자대로 말을 한다. 흔히 “요가나 무릎을 하는 사람들이나 체조선수들은 뼈를 자기 마음대로 휘었다가 꺾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잘못된 말이다. 실제로 무릎에서 발바닥까지는 통뼈라서 자기 마음대로 뼈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어떤 세계적인 무용수라도 체조선수라도 그런 사람은 없다. 다만 관절과 근육만 꺾고 움직이는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해야 된다. 이와 같이 현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실제와 상관없이 말하고 해석한다. “사람의 육신이 휴거된다. 예수의 육신이 구름 타고 재림한다.” 등이다. 고로 망상과 환상에서 끝나는 것이다. 예수의 육신이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시는데, 가장 합당한 사람을 쓰고 나타나신다. 또한 인간의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인간의 육신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은 요가 하는 사람이 몸이 부드럽고 뼈가 부드러워서 뼈를 꺾는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는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꺾는 것이다. 그들은 뼈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근육이 부드러운 것이다. 뻣뻣하고 강철 같은 뼈가 꺾이는 것이 아니듯이, ‘육신’은 하늘로 휴거되지 않는다. 부드러운 관절과 근육을 꺾고 움직이듯이, 육이 아닌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5. 매일 자신이 경험해 보아라. ‘영’이 공중에 다니는지, ‘육’이 공중에 다니는지 경험해 보아라. 휴거도 자신이 경험한 대로 된다.

6. 사람은 매일 잠자는 경험을 한다. 잠을 잘 때 ‘육’이 하늘로 영계로 날아다니느냐. 제2의 자신인 ‘혼’이 하늘로 영계로 날아다닌다. 육은 잠을 자고 있다.

7. 잠자는 시간이 되면 육이 활동하지 않고 혼이 활동하듯이, 하나님도 새 시대가 오면 정확하게 새 역사로 돌려서 행하신다.

8.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였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때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9. 그리고 신광야에서 40년 동안 형벌 기간을 보낸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가나안 복지로 나오게 하셨다.

10.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사명자와 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때 할 일을 정확히 행하신다.

11. 때가 와서 새 역사가 시작됐어도 무지하니 모르는 것이고, 새 역사를 맞지 못하니 모르는 것이다.

12. 때를 맞은 자는 때가 왔다고 하고, 안 맞은 자는 안 왔다고 한다.

13. 때를 맞은 자가 때를 맞고서 얻을 것을 얻고, 취할 것을 취하고, 누릴 것을 누리는 것을 보여 주면, 그제야 알고 오기도 한다.

14. 새 역사 새 때를 맞아도 자신이 깨닫고, 뛰고, 외치고, 전해야 더욱 실감한다.

15.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이 문기를 “어떻게 구시대는 때를 모르고 둔합니까?” 하고 묻는다. 이는 새 시대가 진행될수록 구시대를 덮기에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더욱 길을 못 찾게 되고, 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구시대에 오래 갇혀 살아서 그 마음과 행위가 버릇이 되고 구시대 사고가 더욱 굳어져서 그러하다.

16. 새 시대 젊은이들도 구시대에 가 있으면, 구시대 늙은 자들처럼 감각이 둔해진다.

17. 구시대인들은 하나님을 형식으로 믿고 사랑하며, 주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고까지 굳어져서 더 이상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18. 성자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극비다. 오직 새 시대 구원자만이 성자께 수십 년 동안 배워서 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알겠느냐. 겨우 걷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사랑에 대해서 깨달겠느냐. 이와 같이 성자가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기는 어렵다.

19.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다. 이 말씀 그대로다. 재림에 관한 것은 아들도 모르는 세계다. 삼위일체만 아신다 함이다.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우고 성자를 맞은 자도 성자가 다시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에 안 것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오신 것은 온 인류의 아무도 모른다.

20. 성자의 신부된 자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성자를 맞는다. 그리고 한 명씩 시대 말씀을 전해 준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면, 그도 성자의 신부가 된다. 교리를 지식으로만 배우고 통달한다고 해서 성자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신부가 신랑을 맞고 사랑한 자만 알듯이,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성자를 맞고 성자와 일체 된 자만 안다. 나머지는 교리상, 지식상으로 알고 사는 자들이다.

21. 구시대에서는 성자가 다시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어느 누구라도 구시대 안에 속해 있으니 생각도 못 하고 상상도 못 한다.

22. 구시대 기성인들은 자기가 믿는 예수의 영이 그 육신과 함께 성체가 나타나듯 나타나는 줄로만 안다. 전능하신 성자와 나사렛 예수가 동일하다고 한다. 그러니 전능하신 성자가 영체로 오신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 성경 말씀처럼 아무도 모른다. 성자의 영체가 오셔서 땅에 신부로 준비된 자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땅의 구원자로 쓰신다. 그때부터 재림역사가 시작된다. 한 시대가 가도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모르고, 1000년 역사가 끝나도 구시대 자손들은 맞지 못하니 모른다.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가 배운 교리가 뇌에 꽂 차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가 배운 교리'라는 도가니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살기 때문이다.

23. 성경대로 형식을 벗어나 진정 주를 잘 믿고 사랑하며 살아 있는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는 자라면, 성자께서는 새 역사에 오게 하셨다. 왜 새 역사를 못 맞은 자들은 왜 못 맞았는가? 자기가 자기를 그같이 만든 것이다. 자기가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거부한 것이다.

24. 새 역사에 온 자들을 악평하고 불신하면, 새 역사 사람들이 볼 때 구시대인들에게 정이 떨어져서 다시는 말씀으로 접촉하지 않으려 한다. 지구 세상에는 수십억 명이 살고 있으니,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새 시대 말씀을 전하여 듣고 따라오는 자들만 끌고 간다. 그리고 자진해서 좋아하는 자들만 새 역사를 따르며, 서로 귓속말로 구시대인들의 무지를 탓한다.

25. 자기 애인도 자꾸 불신하고 악평하면 정이 떨어져서 멀리하고, 불신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고 혈기 내지 않는 자를 찾아서 사랑한다.

26. 여자가 성격이 거칠고 강하고 강철 같으면, 그런 데만 써 먹게 된다. (성삼위 앞에 여자 격인 사람들도 그러하다.)

27. 사람은 부드럽고 강해야 된다. 물은 최고로 부드럽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강하다. 물로 다이아몬드나 철도 다 뚫을 수 있고, 닳게 해서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다.

28.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야 된다.

29. 악한 자, 악평자, 불신자의 마음은 너무 강하다. 그 강한 말과 행실이 자기를 강하게 어디론가 몰고 갔다.

30. 우주선이 중력권 대기권을 벗어나면, 다시 지구에 못 돌아온다. 이와 같이 생명권 세계를 벗어나면, 다시 못 돌아온다.

31. 새 역사는 하나님 뜻과 시대의 핵을 쥐고 간다. 구 역사는 거죽도 못 가지고 있다.

32. 사과 농사를 안 짓고 앵두 농사를 짓는 자는 사과껍데기도 못 먹어 본다. 이와 같이 새 역사에 안 오고 구 역사에서 사는 자는 새 역사의 거죽도 맛보지 못한다.

33. 새 역사로 와야 새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새 말씀을 듣고 나가면, 마치 바닷고기가 물을 떠난 격이라서 그 영혼이 또 사망권에 묻히게 된다.
34. 새 시대가 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해는 똑같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 다만 새 역사가 왔기에 그에 해당되는 자연 징조와 표적들은 일어난다.
35. 2013년은 새 역사 섭리역사를 두 번째로 맞는 해다. 첫 번째로 1978년에 섭리역사가 시작되면서 맞았고, 두 번째로 섭리역사 부활과 독립의 때가 되어서 맞는다.
36. 올해는 말씀을 더욱 깊고 차원 높게 해 줄 것이다.
37. 지금 섭리역사는 <부활과 독립의 때>를 맞았다. 이제 구시대에서 매인 것을 끊고 벗어나서 행하기에 자유로운 자가 된 것이다.
38. 신약 때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다!” 하고 외쳤다. 신약역사의 독립을 외친 것이다.
39. 새 시대 오면 새 역사만 잔치한다. 구시대는 조용하다.
40. 새 역사가 오면 ‘말씀’이 바뀌고, ‘성자의 몸, 곧 땅의 사명자’가 바뀌고, ‘따르는 자들’이 바뀐다.
41. 대통령이 바뀌어도 해, 달, 별은 그냥 있다. 체제만 조금 바뀐다. 하늘의 역사도 그러하다. 새 역사가 와서 주권이 바뀌면, 따르는 자들만 좋아하며 잔치한다. 안 따르는 자들은 기쁨을 잃고 산다.
42. 밥도 먹는 자만 기쁘다.
43. 결혼하는 곳만 잔치하지, 나머지는 다른 주관권 세계다.
44. 새 역사가 오면 새로운 인식,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실이다.
45. 지구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눠 보면 구약 1차 부활 기간 - 신약 2차 부활 기간 - 성약 3차 부활 기간이다.
46. 성약역사에서 크게 1차 - 2차 - 3차 부활로 나눈다. 섭리역사를 시작한 1978년부터 공적 역사를 편 21년의 기간이 <섭리사 1차 부활 기간>이다. 그리고 1999년부터 이 시대 사람들과 섭리사를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못 함으로 14년 동안 조건을 세워 줬다. 14년은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을 네 번 보낸 기간이다. 이 기간이 끝나는 때가 2012년이였다. 이 기간이 <섭리사 2차 부활 기간>이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신약역사가 끝나는 때다. 이때에 맞춰 섭리사 무덤 기간도 끝났다. 이 기간에 시대 사명자가 시대 십자가를 저 주었다. 조건과 대가로 2013년부터 성약역사 부활기를 맞고 구시대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이제 <섭리역사 3차 부활 기간>으로서 ‘독립의 때’이면서, ‘영 휴거 기간’이기도 하다. 진정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어야 할 이때다.
47. 물건도 돈을 줘야 판다. 섭리사는 14년 동안 ‘의의 돈’을 지불해서 구시대에서 나와 독립했고, 새 역사 주관권으로 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48. 마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 주니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 수백 배 결실하게 되듯이, 땅의 구원자가 희생하여 죽어 주니 그 몸에서 생명의 새싹이 올라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49. 새 역사가 와서 맞고 살아도 새 말씀을 더욱 깊이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일 실감한다. / 마치 물가에 갔어도

그 물에 들어가 물을 사용해야 물을 실감하는 것과 같다. 물가에 가서 눈으로만 구경하고 있으면, 느끼기는 해도 몸으로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

50. 성자의 계시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안 하니까 못 받는 것이다. 성자는 역사하시고 자기가 받는 것인데, 왜 못 받느냐. 조건을 세워 놓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성자도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모두에게 계시를 주신다.

51. 섭리사에서 계시를 안 받아 본 사람은 없다. 다 받아 봤다. 다 경험도 해 봤고 표적도 보았다. 자기가 표적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개성대로다.

52. 새 시대 새 말씀을 들은 것이 다 계시받은 것이다. 섭리역사에 안 왔으면, 어디서 새 말씀을 듣겠느냐. 성자가 안 주시고, 그 분체도 안 주었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새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겠느냐.

53. 새 역사에 와서 말씀을 들었기에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고로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것도 주가 깨우쳐 주신 것이다. 다만 사람마다 생각의 수준이 낮고 높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말씀’뿐 아니라 ‘꿈’으로도, ‘만물’로도 각자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러나 깨달은 자가 있고 못 깨달은 자가 있다. 자기가 깨닫고, 못 깨닫고에 따라서 “나는 계시를 받았다.”, 혹은 “못 받았다” 하는 것이다.

54. 하나님도, 성자도, 그 분체도 각자 깨닫는 대로 더욱 대하게 된다. 그러니 마음으로 확인하면서 100번, 1000번씩이라도 물어봐라.

55. 자기를 위해 수고하여라.

56. 2013년도는 새 역사 중에서도 부활과 독립의 역사다. 고로 성자도 분체도 달리 대하니, 너희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달리 하여 성자와 분체를 달리 대하여라.

57. 폭탄을 던지기 전과, 폭탄이 터진 후에는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듯이, 새 역사가 터졌으니 달리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58. 군대 계급이나 경찰 계급을 모르는 자는 계급이 제일 높은 상관이나 일반 사병이나 일반 경찰과 같이 운동하고 먹고 즐기면서 살아도 하나의 군인이나 경찰로만 안다. 자기가 군과 경찰에 소속되어 있어도 안 배우면 모르듯이, 시대 사명자도 안 배우면 같이 살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른다.

59. 신약시대 때는 ‘성자’를 확실히 몰랐다. 성약시대가 오니 알게 되었다. ‘성자’는 전능자요, 온 세상의 구원을 총 담당하는 존재자다.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쪼개서 봐야 된다. 본체와 분체다.

60. 땅의 구원자는 시대마다 성자의 육으로 쓰여진다. 성자의 육은 신약 때 한 사람, 성약 때 한 사람이다.

61. 땅의 구원자만 믿으면, 그는 사람이라 약해서 믿는 자들이 낙심한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자를 믿고, 그와 더불어 사람인 땅의 구원자를 믿어야 된다.

62.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으려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의 구원자 모세를 안 믿고 원망했다. 고로 광야에서 멸망 받고 끝났다.

6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고, 그 터전 위에 땅의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64. 땅의 구원자는 늘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내가 보낸 자를 믿어라.” 했다. (파란색 부분 천천히 또박또박 한 마디씩 강조하며 읽어야 할 부분)

65. 하나님과 성자가 땅에 보내서 외치는 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도 성자도 믿고 행해야 된다. (파란색 부분 천천히 또박또박 한 마디씩 강조)

66. ‘나사렛 예수’는 성인을 넘어서신 자로서, 전능하신 성자가 절대 땅의 구원자로 쓴 유일무일 한 자로서 인류의 구원자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을 넘어서었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는 하나님과 성자가 그의 몸으로 쓴 구원자가 아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정한 성인이다.

67.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의 구원자가 땅에서 제일 큰 자다. 그로 말미암아 영을 구원하여 그 영이 영원히 살게 해 주기 때문이다.

68. 전능하신 성자가 구원역사를 위해 땅에 크게 나타나신 것은 두 번이다. 신약 초림 때 나사렛 예수를 쓰고 한 번 나타나셨고, 성약 재림 때 신부로 준비된 자를 쓰고 나타나셨다. 아담 때는 성장기 때 타락함으로 역사를 못 했다.

69. 주는 말없이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신다. ‘본인이 알고 깨닫기’다.

70. 자기가 깨닫고 알아야 더욱 신임하고 좋아하면서 따르게 된다.

71. 어떤 나라의 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조상 때 묻은 도자기 하나를 발견했다. 파란빛이 나고 고귀해 보여서 알아보니 ‘고려시대 청자기’였다. 그런데 자기 나라는 후진국이라 환율이 낮으니, 환율이 높은 나라의 사람 중에서 친한 사람에게 이 물건을 팔아 달라고 했다. 그들을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극비로 꼭 팔아 주겠다고 했다. “얼마에 팔아 주면 되겠냐?” 하니, “네 나라에 가서는 4000만 원을 받지 않겠냐. 4000만 원은 꼭 받아 줘.” 했다. 부탁을 받은 사람은 이 도자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도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보이며 말했다. 4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은 3000만 원 이상은 못 사겠다고 해서 도자기를 알고 사고 판매하는 더 큰 곳으로 갔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서 도자기를 사겠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9000만 원 정도면 사겠다.” 했다. 이에 그는 얼른 도자기를 팔고, 도자기 주인에게 그대로 돈을 갖다 주었다. 도자기 주인은 부탁한 사람에게 “너는 참으로 정직하다.” 하면서, 그를 신임하고 그 나라에서 하는 다른 큰 일을 맡겼다. 9000만 원을 주고 도자기를 산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도자기를 팔았는데 9억을 주고 팔았다. 9억을 주고 도자기를 산 사람은 자기 박물관에 넣어 놓고 애지중지하며 보았다. 도자기가 정말 빛이 나고 좋았다. 알아보니, 그 도자기는 국보로서 90억의 가치가 나간다고 했다. 도자기를 팔고 사는 자들이 도자기 값이 얼마인지 몰랐던 것이다. 그 가치를 알아본 자가 결국 주인이 되었다.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에 보낸 구원자도 ‘과정’ 중에는 잘 모른다. 아는 자는 더 팔지 않는다.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를 모르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팔았듯이, 이 시대도 모르는 자들은 시대 구원자를 모르고 저주하며 고통과 억울함으로 팔았다. 하지만 아는 자들은 팔지 않고 자기가 취했다.

72. 사람이 아는 만큼 유익이다. 모르는 만큼 손해다.

73. 휴거도, 시대 말씀도, 시대 사명자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혈값에 팔아 놓고 “잘 팔았다. 유익이다.” 하며 좋아한다.

74. 밭에 숨겨진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값을 달라는 대로 주고 밭을 사야 된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야 된다.

75. 월명동도 가치를 몰랐을 때는 평당 5000원을 달라고 했어도 필요 없다고 하며 안 샀다.

76. 그러나 하나님과 성자의 계획과 구상을 안 후에는 월명동 땅을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이 알고 5000원 보다 2배, 3배 더 비싸게 주고서라도 샀다.

77. 동그래산도, 앞산도, 뒷산도, 옆산도 다 보화의 땅으로 쓰인다. 땅값보다 더 귀하게 쓰이니 ‘보화의 산’들이다.

78. <동그래산>은 ‘낙타바위’가 숨겨진 보화 산이다. 낙타바위가 숨겨진지 모르고 샀다. 땅값을 10배 더 준다 해도 낙

타바위를 갖다 놓을 수가 없다. / <앞산>은 ‘야심작’이 숨겨진 보화 산이다. / <뒷산>은 ‘소나무들’이 숨겨진 보화 산이다. / <옆산>은 1000톤짜리 ‘보지마바위’가 숨겨진 보화 산이다. → 이것을 모르면, 보화도 하나의 돌 같이 보고, 그냥 산 같이만 쓴다. 사람도 그러하다.

79. 새 시대를 만나도 욕 휴거되고 영 휴거돼야 새 시대를 맞은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다. 욕도 영도 휴거되지 못하는 자는 환상적으로 기분에 살다가 죽는다.

80. 매일 찾아서 얻어라! 새 시대를 알고 보면 보화 천지다. 욕적으로 영적으로 양단으로 찾아야 된다. 욕적으로만 얻으면 배만 부르고 꺼지듯이 그것으로 끝난다. 영적으로 찾아야 영원히 누린다.

81. 새 시대 사명자인 본체와 일체 되어라. 그리고 성자 본체와 일체 되어라. 자기가 믿고 행하여 주인이 돼야 한다. 행하는 것이 보화다. 새 역사가 독립했으니, 어서 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보화를 얻고 누려라!

<2013년 3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한 번 결정되면 평생 결정되는 세계다.
2. 하루를 살아 보아라. 한 번 결정되면 하루 종일 그같이 살지 않느냐.
3. 가령 “오늘 여행 가자.” 하고 아침에 결정하면, 그날은 여행하고 끝난다.
4. 가령 “오늘 전도하러 가자.” 하면, 그날은 전도로 시간을 다 보낸다.
5. 이 세상에서 욕이 결정하고 일생을 산 대로 영이 사는 영원한 세상이 결정된다.
6. 자기 영이 어느 영의 세계로 갈지 결정되면, 결정된 그 세계로 가게 된다.
7. 사람의 몸은 두 개가 아니다. 자기가 직장에 가면 자기 몸이 직장에 있게 되고, 학교에 가면 자기 몸이 학교에 가게 된다.
8. 새벽 시간에도 자기가 결정한 곳에 가 있게 된다.
9. ‘결정’이 문제다. ‘결정’이 생명이다. 마음에 결정하면, 자기 마음도 몸도 거기에 가 있게 된다.
10. 새벽부터 정말 필요한 것을 고르고 골라서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
11. 몸은 하나라서 같은 시간에 두 곳에 못 간다.
12. 사람도 결정한 대로 살게 되고, 환경도 결정한 곳으로 가게 되고, 시간도 결정한 대로 쓰게 된다.
13. 중하고도 또 중하고도 중한 일만 골라서 하여라.
14. 인생을 잘 살 자신이 없으면, 성자에게 맡기고 주가 시키는 일을 하여라.
15. 월명동에서 집회할 때 운동장이든지, 잔디밭이든지 한 번 장소를 결정하면 불편하든지, 문제가 있든지 결정한 곳에서 해야 된다.
16. 결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옮겨야 된다.

17. 오늘 새벽 1시 5분에 기도하다가 영계에서 한 장면을 보았다. 월명동에서 집회가 있었다. 선생은 집회할 장소가 잘 정돈되었는지 보려고, 조은이와 둘이 집회 장소를 보러 갔다. 모두 산에 모여 있었는데, 청중 자리 배치를 ‘ㄱ’자로 해 놓았다. 12000명이 모였는데, 4000명은 동쪽 방향에 앉아 있었고, 보다 늦게 온 사람들 8000명은 남쪽 방향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단상을 동쪽에다 배치해 놓고 있었다. 그러니 동쪽에 앉은 사람들에게만 단상이 보이는 상황이었다. 결국 단상을 동쪽에 높게 배치해 놓고, 모두 동남쪽 중앙에 앉으라고 했다. 그러니 남쪽에 앉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다. 선생은 집회를 준비한 자들에게 “왜 집회 장소를 잔디 성전으로 안 잡았나?” 하며 “30분이면 옮길 수 있냐? 장소를 옮기면 좋겠다.” 했다.

18. 청중이 모이는 집회 때 한 번 위치를 결정하면, 설교자도 청중도 개인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위치에서 해야 된다. / 이와 같이 인생 삶도 한 번 결정하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결정하고 시작하기 전에 정말 잘 고르고, 또 고르고, 잘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19. 육의 세계의 삶이 결정되는 대로 영의 세계의 삶이 결정된다.

20. 어떤 문제를 두고서 해결할 방법이 결정되면, 그 방법 그대로 해야 된다. 고로 행하기 전에 최고 좋고 이상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21. 잘못 결정하고 하면,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된다.

22. 길고 짧은 것은 대 보고, 그중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

23. 월명동 야심작도 마지막에 결정된 대로 하나님의 구상대로 쌓았다. 그리고 다른 곳들도 마지막에 결정된 대로 쌓았다.

24. 설교도 그 날 어떻게 전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 행하게 되니,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잘 못 전하면 못 전한 대로 끝나고 만다.

25. 10대, 20대, 30대 때 인생이 결정된 대로 일생을 산다.

26. 그 시간에 그 차를 타려면, 그 시간에 그 차에 올라타야 된다.

27. 한 인생, 한 위치, 한 일이다.

28. 제자들끼리 하면 항상 한 단계 아래에서 한다. 고로 선생에게 물어보고 행하여라. 그래야 한 단계 위에서 한다.

29. 육계에서는 새벽마다 각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혼계에서는 섭리인 모두 한자리에서 선생과 함께 새벽예배를 드린다. 늦게 온 자는 선생이 안 보이는 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고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선생의 얼굴을 못 보고 끝난다. 주일예배, 새벽예배, 성령집회도 그러하다.

30. 혼계에서 상황을 보고서, 그 육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 육의 상황을 알게 된다.

31. 혼체들은 섭리인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32. 그러나 혼계에서도 때에 따라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 집회가 있을 때는 그 나라나 그 지역에서만 집회를 하기도 한다.

<2013년 3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은 외적으로도 있고 내적으로도 있으니, 잘 보고 찾아라.

2. 사람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창조되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아라. 한 지체만 보아도 그러하다.
3. 하나의 과일나무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자세히 보아라.
4.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창조하셨다.
5. 월명동 자연성전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무언인지 보아라.
6. <외적 신비>는 7~8m의 긴 돌을 세워서 쌓은 것이다. <외적 웅장>은 돌들을 높이 줄지어 쌓은 것과 큰 돌과 큰 나무들이다. <외적 아름다움>은 잔디밭, 운동장, 연못, 정자 등 월명동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7. <내적 신비>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다. <내적 웅장>은 구름같이 몰려오는 청중들과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다. <내적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성자가 택하신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8. 사람들은 “아름답다. 신비하다. 웅장하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그렇다고 한다. 그러다가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자에게 공격받으면, 구체적으로 모르니 자기 주장이 무너진다.
9.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창조했다.”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지 말고, 아름다운 면은 무엇인지, 신비한 면은 무엇인지, 웅장한 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고 주장하고 가르쳐 줘야 된다.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다, 누가 “아니, 어떤 것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냐?”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은 없다. 아니다.” 할 때, 그 말을 듣고 헛갈리고 패하게 된다. 사람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사람의 신비함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사람의 웅장함은 무엇인지 찾아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셨는데도, 자기 것인데도 모르느냐. 모르면 미련하다. 미련한 자는 모르고 주장한다. 사람의 지체 하나만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다 들어 있다. 의학적으로 그 기능을 보아라. ‘입’ 하나만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생겼다. 입속에서 일평생 얼마나 많은 음식물을 깨물어 먹는지 보아라. 여섯 트럭 정도를 입에 넣고서 가루로 만든다. 입으로 말하는 것을 보아라. 얼마나 웅장하고 신비한 말이 나오는지 보아라. 그리고 입이 얼마나 신비하게 생겼는지 보아라. 자기가 구체적으로 알고 주장하고 행해야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에 대한 책임분담을 하게 된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큰 것만 웅장한 것이 아니다. 작아도 기능이 웅장하고, 작은 대로 신비하고 아름답다. 너희가 매일 쓰고 있으니, 너의 한 지체, 한 지체를 보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을 찾아보아라.
10. ‘시대 말씀’도 구체적으로 알고서 주장하고 가르쳐라.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면, “맞아. 아멘!” 하고 믿는다. 그런데 왜 1년이면 수십만 명씩 믿다가 말겠느냐. 제대로 확실히 알면 믿다가 말지 않는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도해서 의로 싸우고 능력으로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심판을 맡기고 이기면서 끝까지 믿는다.
11. 예수가 왜 인류의 구세주였는지 일곱 가지, 열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 인간 자체 메시아는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메시아로 쓰시니 메시아다. -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주니 메시아다. -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절대 구원받으니 메시아다. -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행하시니 메시아다. - 역사적으로 때를 맞춰 역사를 이루니 메시아다. - 그의 말이 역사가 되고, 그의 행실이 역사가 되니 메시아다. - 메시아 행실을 하니 메시아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통해 행하시니 메시아다. 이같이 알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믿어야 믿다 말지 않고, 어떤 말과 주장과 이론 앞에서도 이기고, 환난 때도 중심을 지킨다.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긴다.
12. 이 시대도 “성약역사가 맞다. 성자가 맞아. 분체가 성자의 육으로서 구원자야.” 하며, 그냥 “아멘.” 하고 믿지 말고, 역사와 분체에 대해서 적어도 일곱 가지, 열 가지 정도는 알고 믿고 따라야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자기 이론과 주장을 펼 때도 그들을 이기고, 환난 때도 더 자부심을 내세우면서 환난을 겪고 이기고, 구질구질한 사탄 마귀와 미련한 사람들과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거짓되게 하는 말들을 다 꺾어,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수듯이 한다.

13. 월명동이 무엇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지 분명히 알고 말해야, 누가 “월명동이 아름다운 것이 뭐야? 신비한 것이 뭐야? 웅장한 것이 뭐야?” 하면, 다 쪼개서 말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명자와 성자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확실히 말해 줘야 된다.
14. 확실히 알고 증거하고 외치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마음과 정신과 몸에 붙는다. 성자가 역사하신다.
15. 시대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믿으면, 결국 자기 생각이 골 때려 쓰러진다.
16. 뿌리 없는 나무는 가물면 말라 죽고 바람 불면 넘어지듯이, 말씀으로 확실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은 오래된 자도 어린 신입생도 가다가 구질구질한 사탄 마귀와 불신자들의 꾀에 넘어가고, 어린아이의 말에도 넘어가고, 환난의 바람이 조금만 불어 춤기만 해도 그로 인해 신앙이 넘어진다. “내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더운데 왜 교회에 다니지?” 하고, 자기가 골 때려 쓰러져 교회에 안 나오고, 세상 사랑과 성적 사랑과 음침한 데로 쏠려 간다.
17. 천국에 대해서도 막연히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간다.” 하지 말고 기도해서 천국의 한쪽 구석이라도 가 보고 와서 말해 주면, 자기 주장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말해도 상대가 안 믿으면, 자기라도 확실히 알고 믿으니 신앙이 튼튼하고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지 않겠느냐. / 자기가 못 가면, 성자께서 천국을 보여 준 사람들이 있으니 그 말을 듣고 믿고 배우고 가르쳐 주면 된다.
18. 올해는 <말씀의 해>다. 금 같은 진리를 확실히 배워서 알면, 자기도 금같이 가치 있게 변화되고, 금 같은 사랑을 갖게 된다.
19. 그동안 섭리역사에 있으면서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 시험에 빠져서 구질구질한 사탄 마귀의 꾀임을 받고 거짓을 말하고 불신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나갔다. 그동안 섭리사에 있으면서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몰랐지만, 일찍 왔으니 사명을 받고 걸만 외친 것이다. 지식으로만 안 것이다. 제대로 확실히 알았으면, 선생을 따라오면서 그같이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은 온갖 것을 다 해 줬다.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천억 원이 넘는 ‘진리’를 주어 구원해 주었다. 그러나 시대 진리를 확실히 모르니 어린아이들같이 먹을 때 먹고, 놀 때 놀면서 따라다니기만 한 것이다. 신앙의 가뭄이 들고 바람이 불어 환난이 일어나니,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넘어간 것이다.
20. 성령 충만해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근본을 모르고 따르면, 성령을 매일 까먹다가 결국 식어 버린다. 그러면 곤고하니 쓰러진다.
21. 선생이 기성 교회에 다닐 때도 기성인들은 성령 충만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마음과 몸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교회에 안 다닌다. 선생은 그때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지 못했다. 다만 ‘진리’를 확실히 알았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살아야 철강 신앙이 된다.
22. ‘성령’은 난자, ‘말씀’은 정자다. 둘이 일체 돼야 된다. 그래야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23.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받으니, 성령을 받아도 식는다. 성령이 누구인지 알아라. 모성 신(母性 神)으로 천모이다. 하나님과 성자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의 주인인 분체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말씀도 성령도 알고 받아야 된다.
25. 모르고 아기를 낳으면 기르다가 아기가 죽는다. 고로 다시 낳아야 된다. ‘성령’도 ‘말씀’도 모르고 받으면, 관리를 못 하여 상실하게 된다. 고로 아기가 죽어 다시 낳듯 해야 된다.
26.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27. 아는 자의 것이다. 말씀을 알아야 주와 일체 되어 주와 같이 강하다.

28. 성령은 어느 때는 뜨겁게 나타나 역사하고, 어느 때는 차갑게 나타나 역사하고, 어느 때는 감동을 주면서 나타나 역사한다. 몸이 안 뜨거워도 감동이 온다. 이때는 성령이 온 것이다. 고로 이때 성령님을 불러라. “성령님, 안녕. 사랑해요! 저 이제 성령이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며 대화하여라. 특별한 대화거리가 있겠느냐. 네가 겪은 것을 이야기하여라. 넘어진 것, 혼자 일어난 것, 아팠던 것, 창피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러면서 대화가 된다. 그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대답하신다. “너는 눈이 없느냐. 넘어지게. 강아지도 안 넘어지는데. 종일 강아지를 봐라. 온종일 안 넘어진다.” 하신다. 그러면 그냥 있지 말고 “강아지는 다리가 네 개잖아요. 저도 다리가 네 개라면 안 넘어져요.” 하여라. 그러면 성령께서 높은 차원으로 대답하신다. 이때 한 단계 더 높이 배우게 된다. “개는 짐승이다. 지능이 약해. 고로 다리가 두 개이면 많이 넘어져서 골 때려 죽지. 그래서 다리를 네 개로 만들었어. 너는 사람이라서 지능이 120~130이다. 그러니 두 다리를 가지고서도 개보다 훨씬 더 나아야지.” 하신다. 이렇게 대화하듯 하면서 배우게 된다.

29. 집에서도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한 어린아이는 내적으로 세심한 것을 많이 배운다.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면 외적으로 담대한 것을 많이 배운다. 자녀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부모님은 학자요, 선생이요, 정치인이다. 그런데 안 배우니 모른다. 부모는 이미 겪어서 정치,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러나 섭리사에 오지 않은 자들은 자기 위치에서 그 수준만 알 뿐이다. / * 참고로 부모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니, 부모의 말을 들어주면서 너희가 배운 것을 하나씩 이야기해 줘라.

30. 성령은 수천 가지로 역사하신다. 고로 성령을 모르면, 그 역사하심도 모른다.

31. 성령의 불로 무쇠 같은 마음을 녹여 휴거의 육과 혼과 영으로 변화시켜라. 무쇠를 용광로에서 안 녹이면 철을 못 만들고, 철을 용광로에서 안 녹이면 철로 어떤 기계나 기구를 못 만든다. 너희 무쇠 같은 마음도 완전히 녹아지도록 충만하게 성령을 받고, 수시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자와 그 분체의 뜻을 좇아 행하여라.

32. 성령의 불로 사탄을 태워서 숯검정으로 만들고, 성령의 불로 악한 영들을 태워 100도 화상을 입혀 지옥 불 속으로 쫓아 버려라.

33.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로 자기 죄를 다 태워서 재로 만들고, 성령의 바람으로 자기 죄를 다 날려서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34. 성령의 역사는 영 휴거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여라. 준비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준다.

<2013년 3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가만히 오래 서 있으면 물속에 있는지 못 느낀다. 성자 주님과 한 방에 같이 있어도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서로를 느끼고 알게 된다.

2. 몸이 가서 달아도 마음과 생각이 안 가면 못 느낀다.

3. 정신이 죽으면 몸이 가도 못 느낀다.

4. 사람은 ‘느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살았다. 죽었다. / 젊다. 늙었다. / 새것이다. 옛것이다.’ 구분한다.

5. 느끼는 자만 받고 알게 된다.

6. 기도해야 마음도 생각도 더욱 느껴진다. 혼과 영이 강하게 느껴야 육신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느껴진다.

7. 신앙생활을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밖에 못 느낀다.

8. 결심하고 열을 내서 해야 차원 높게 느낀다.
9. 느끼는 대로 행하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차원 높여 가게 된다.
10. 생각이 방향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11. 잠언을 쓰다가 다른 것을 생각하니, 다음 잠언의 문구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12. 생각을 실상으로 남겨야 존재한다.
13. 생각만 하고 말면, 사라지는 바람이 되고, 흘러간 물이 된다.
14. 성자와 함께 생각하고 해 놓으면 합작품이다.
15.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고 보인다.
16. 나무를 좋아하여 만지고 가꾸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고 키우면, 그 사람으로 생각되고 보인다.
17. 생각은 소스다.
18. 생각을 하는 대로 상대가 그같이 보이고 느껴진다. 고로 생각은 소스다.
19. 생각이 온전해야 된다. 그릇된 생각은 결국 환상으로 끝나고, 실속 없는 꿈으로 끝나게 된다.
20. 상상과 환상에서만 놀면, 실속 없는 자가 된다. 꿈에서 깨면 끝나고, 정신세계에서만 끝나고 만다.
21. 성자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영원히 남는다.
22. 사람은 모두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산다. 인간의 한계로 육적으로만 살면, 육이 죽으면 육에서 끝난다.
23. 영원한 성자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자의 생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좋으나 나쁘나 육에서 끝난다.
24. 깊은 단계에 간 자만 깊은 것을 안다.
25. 겉 세상인 ‘지구 세상’이 있고, 속 세상인 ‘영의 세상’이 있다.
26. 사람도 겉 세상에 속한 ‘육신’이 있고, 속 세상에 속한 ‘영과 혼’이 있다.
27. 깊이 신앙을 못 하고 겉돌면서 하는 자는 생각도 행위도 다르다.
28. 기계도 속 세계가 작동하니 겉 세계가 돌아가듯이, 사람도 속 세계인 ‘혼과 영’이 활동하면서 겉 세계인 ‘육신’이 돌아간다.
29. 자기 차원대로 보고 듣는다.
30. 차원 높은 눈으로 보고 골라라.
31. 성자 주님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뛰어나냐고 물으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각자 개성이다.” 하셨다.

32. 그래도 섭리사에서 뛰어난 사람을 말하면서 또 누가 뛰어나냐고 물으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뛰어난 사람은 특별히 만들어야 돼.” 하셨다.

33. 자기를 뛰어나게 만들어라. 그러면 성자가 쓰시기에도 쉽다.

34. 전능하신 성자께서 행하시는 일을 해야 눈에 띄고 뛰어나게 된다.

35. 성자의 말씀으로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이 시대 개성의 왕 같은 자가 되어야 할 때다.

<2013년 3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49. 세상은 성적 사랑을 즐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성적 사랑을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기쁨으로 정하셨을 뿐이다. 명예, 돈, 환경, 예술, 학문 등 수십 가지의 보람과 기쁨 중 하나의 육적 기쁨으로 정하셨다.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의 사랑은,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최고 뛰어나게 정하셨다.

51. 무한한 사랑은 영적으로만 가능하다.

52. <육신의 성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53. <영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로 무한하게 누리도록 정해 놓으셨다.

54. 위장은 한계가 있어 음식을 먹는 양이 한계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육적인 사랑>은 그와 같이 한계를 정하셨다. 혼적, 영적 사랑만 무한하게 끝도 없이 누리도록 정하셨다.

55. 마음도 정신도 육에 속한 것이라 피곤하다. 마음과 정신은 뇌에서 작동되어 일어나니까 육이 피곤하면 마음도 정신도 피곤하다.

56. 혼과 영은 육을 벗어나서 행하니 피곤하지 않다.

57. 육신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다. 고로 한계가 있다.

58. 육의 한계 안에서 행하면서 자기 혼과 영을 변화시키고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만들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 창조 목적이다.

59. 육에서 끝나면 저마다 영이 있으니 영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림받는다.

60. 퇴비를 가지고서도 그냥 두면 썩어서 없어지고 버림받는다. 육은 영의 퇴비다. 퇴비를 가지고 과일나무를 가꾸어 과일을 열게 해야 되듯이, ‘육’이라는 퇴비를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가꾸고 키워서 ‘영’이라는 열매를 열게 해야 된다.

61.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축복을 주셨어도 인간이 이를 깨닫지 못하면, 무(無)로 흘러가고 끝난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하는 자만 영원한 것을 얻어 영원히 남아진다.

62.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육의 것을 깨닫고 행하면 육의 것이 남아지고, 영의 것을 깨닫고 행하면 영의 것이 영원히 남아진다.

63. 같은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64. 생각이 귀하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65.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역시 육적 일이나 한다. 그 일은 곧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을 즐기는 일이다.
66. 영의 것을 생각하고 행하여라. 그러면 영의 것을 얻는다. 이는 육의 것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게 더 크고 엄청나고 영원하다.
67. 결정하는 대로 가게 된다.
68. 저마다 선택의 자유는 있다. 알고 잘 선택해라.
69. 성자가 선택해 주시는 대로 하여라. 그 안에 육의 것도 영의 것도 다 들어 있다.
70. 오늘은 “열 내야 느낀다.”라는 성자의 계시로부터 잠언을 쓰기 시작했다.
71. 등을 돌리면,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
72. 마음을 돌리면, 옆에 있어도 생각나지 않는다.
73. 마음이 일체 되면, 천 리나 떨어져 있어도 늘 생각으로 만져진다.

<2013년 3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생각’이 문제다.
2.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신이 되기도 한다.
3. 몸의 생김새는 못 바뀌도 마음과 생각은 아는 것에 따라서 바뀐다.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몸이 행하게 된다.
4. 모르면 흑암권, 알면 생명권이다.
5.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차원에서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
6. 인간이 절대자 신과 일체 되었을 때, 그 뜻에 의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7. 신과 인간이 하나 되면, 마치 정자와 난자가 하나 되는 것과 같아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가져야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 신적 차원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9. 성자의 생각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주관권 세계를 못 벗어난다.
10. 인간은 한 개다. 두 개가 아니다. 고로 한계를 못 벗어난다.
11. 한계 상황에 처하면 거기가 끝이다.
12. 인간의 몸으로는 땅을 면치 못한다. 아무리 손을 내젓는다 해도 새같이 하늘을 날 수 없다. 오직 신의 생각을 가져야 땅을 면한다.
13. 인간은 금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지만, 금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동물이나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한다.

14.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을 변화시켜 신의 대상체로 만드시고, 성자와 함께 그 영을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가게 만드신다.
15. 인간의 육을 가지고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지 않으면, 누구든지 육은 죽어서 끝나고 그 영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 버린다.
16. 삼위의 주관권 세계에서 믿고 살면서 그에 해당되는 말과 글을 쓰는 자가 있고, 세상 주관권 세계에서 살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 하나님과 세상에 관한 말과 글을 쓰는 자가 있다. 이것들을 분별하여라.
17.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계시에 의해서 하는 말과 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
18. 땅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에 비해 실 가닥과 같다.
19. 구세주를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자만이 영생길을 가는 자다.
20. 육적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니, 값이 없는 삶을 사는 인생들이다.
21. 육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값이 없다. 영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값있는 인생이다.
22. 육신은 질그릇과 같고, 영은 그 속에 담긴 금 사과와 같다.
23. ‘육신 값’은 질그릇 값이고, ‘영혼 값’은 지구만 한 금덩이 값보다도 더 비싸다.
24. 육신이 성자의 뜻대로 행하여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야 된다. ‘영’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면, 자기 육신도 1조 원의 금덩이같이 쓰여진 몸이 된다.
25. 영혼 만들기다!
26. 육신이 성자의 진리를 행함으로 영이 만들어진다.
27. 평생 자기 영 만들기다. 자기 육신이 먹고 입고 살면서 모든 것을 투자하여 영 만들기다.
28. 오직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시대에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 안에서만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천국의 영으로 만든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도 안 되고, 이단과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도 안 된다. 그러다가는 그 영이 영원히 불을 부어대는 사망으로 간다.
29. 육신이 세상에 살면서 사망에 속해 살고 있다.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사망에 처해 산다.
30. 자기 육의 행위로 인해서 자기 영이 지옥 쪽에서 살아도 모른다.
31. 절대자이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신이 못 된다.
32. 나사렛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신인 삼위일체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한 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내신 자로서 성자께서 그 육으로 쓰는 구세주였다. 구약 모세 때는 모세를 땅의 구원자로 세워 구약 차원의 구원을 시켰고, 신약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땅의 구원자로 세워 신약 차원의 구원을 시켰다. 재림 때는 또 새롭게 삼위일체의 육신을 뽑아서 재림 시대에 해당되는 재림 신부급 구원을 시킨다.
33. 삼위일체는 머리가 되어서 그 육신으로 쓰는 자를 몸으로 쓰신다.

34.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시하고, 그가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어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35. 종들은 종을 면치 못하고, 아들은 아들을 면치 못한다.

36. 신부는 종도 아들도 면한다. 지금은 신부 시대, 성약 시대, 휴거 시대이며,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신 재림 시대다.

37. 구약인들은 신약역사가 시작되었어도 몰랐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니 신약역사를 몰랐고, 2012년이 되어 신약역사 주관권이 끝났어도 지금도 모른다. 구시대는 신시대에 비해 원시인 신앙이다.

38. 신약인들도 역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도 모른다. 시대 말씀을 들어도 불신하면 모르고, 새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모른다.

39. 생각을 안 하면 자기가 기다리던 자가 와서 앞에서 잔치를 해도 모르고, 같이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

40. 주가 와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 사람의 마음 그릇이 되어 있고 합당해야 밝히지, 안 밝힌다.

41.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구원자는 아는 자만 안다. 합당한 자만 알고, 알았다가도 합당하지 않게 행하면 자기의 온전치 못한 행위로 인해 그 주관권을 벗어난다.

42. 구세주가 아니면,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못 시킨다.

43. 거짓도, 진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감찰하시어 일점일획도 오차 없이 행위대로 분별하여 골라내고 또 골라낸다.

44. 성자는 전능자다. 삼위일체이며 절대 신이다. 성자는 신으로서 육체가 없다. 고로 필요한 대로 세상 인간의 육체를 쓰고 나타나신다.

45. 성자가 재림하신다. 성자가 세상 인간의 육신을 쓰시고 재림 말씀을 전하신다. 우리 육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 영이 성자의 신부로 변화되고 휴거의 영이 된다. 그 영을 성자 본체가 오시면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46. 모르고 믿으면 평생 믿어도 모른다. 헛수고다.

47. 구시대는 새 시대에 대해 소경이다.

48. 원시인들도 먹고 입고 생활한다. 그런데 문명인같이 삶의 차원이 높지 않고, 차원 낮게 살아간다.

49. 구시대에서도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산다.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한다고 믿고, 인간의 육신이 휴거되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고 산다.

50. 다른 주관권 역사는 다른 주관으로 행하는 것이다.

51.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 그런데 만나기는 한다. 시장에서 만나고, 거리에서도 만난다. 영계에서도 그러하고, 육계에서도 그러하다. 만나더라도 관광객이면 그들과는 사는 나라가 다르듯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만나기는 하지만 사는 곳이 아예 다르다. 주관권이 아예 다르다.

52. 끝이라도 고기를 잡으면 잡은 것이다.

53. 4시나 5시라도 잡아라. (새벽기도)

54. 시간은 애인이다.

55. 성자는 시간의 애인이다.

56. 여자는 꽃이지만, 잘 보면 꺾는 자다.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잘 보라. 세밀히 보면 여자의 본성이 보인다. 그 속에 여우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성 중독자도 있고, 대마초와 마약 같은 자도 있다. 한 달, 두 달 잘 보라. 사탄 괴물도 있다. 변하면 괴물이다. 여자는 말로도 꺾고, 몸과 생긴 것으로도 꺾는다. 여자는 꽃이다. 그러나 잘 보면 꺾는 자다.

57. 남자를 잘 보라. 뱀장어다. 잘 보라. 뱀이다. 괴물도 있다. 하이에나도 있다. 한 달, 두 달, 1년 동안 두고 보라. 계속 보라.

58. 충성해도 자기 기회를 노리는 충성자도 있다. 잘 보라.

59. 완전히 만든 자만 믿고, 시인해 주고, 인정해 주고, 같이 일해라. 완전히 만든 자는 안 변한다.

60. 사과도 온도가 안 맞으면 바로 변질되고 썩는다. 사람도 환경에 따라서 그러하다.

<2013년 3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새벽 4시부터는 모순을 깨닫는 시간이고, 2시부터는 좋은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고, 1시부터는 실제로 행하여 얻는 시간이다.

2. 육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 만들 수 없는 것을 영의 세상에서는 만든다. 곧 영의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 준다. / 가령 사람의 육이 썩어서 시체가 되면, 시체는 육의 세상에서는 살아 다닐 수 없다. 그러나 영의 세상에서는 시체를 마음대로 보고, 주님은 그것을 보이면서 자기 육의 행위와 실체를 깨닫게 하신다.

3. 영토 확장은 시간 확장이다. / 새벽 시간을 두고 보자. 새벽 4~5시에 기도하면 변두리 영토를 뺏은 것이고, 3시에 기도하면 중간 영토를 뺏은 것이고, 1~2시에 시간을 빼앗아 기도하면 핵심 영토를 뺏은 것이다.

4. 4시, 3시, 2시, 1시는 각각 시간이 다르듯이 차원도 다르다.

5. 자기 만들기. 자기 다스리기. 자기 관리하기다.

6. 자기를 못 만든 자는 어느 곳에 가도 혜택을 못 받는다.

7. 자기를 만든 자는 늘 혜택을 받는다.

8. 주는 자와 받는 자, 둘 다 만들어야 된다.

9. 자기를 만든 자와 만들지 않은 자가 같이 행하면, 서로 차원이 달라서 하나 되지 않는다.

10.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은 한 차원에서 살려면,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만든 대로 그 차원에 산다.

11. 천국은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만든 대로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가게 된다.

12. 세상의 존재물도 만든 대로 부르고 그 위치에 놓는다. 시골마당과 운동장은 다르다. 연못, 호수, 댐, 바다는 각각

다르다. 위치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부르는 명칭도 다르다. 이같이 천국도 자기를 만든 대로 그 위치와 그 장소에 가는데, 각각 명칭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13. 시대에 따라 자기를 만들지만, 만드는 데 그 한계는 끝이 없다. 언제까지 만드는가? 온전한 신이 되기까지다. 고로 끝이 없다.

14. 위치만 높은 차원으로 옮기려 하지 말아라. 자기를 안 만들고 자기보다 높은 차원의 위치로 옮기면,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15.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야 옛 위치로 다시 안 돌아오고, 만들어진 그 위치에서 존재하게 된다.

16. 가령 주택 지역에 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집을 안 짓고 나무만 갖다 놓고 집 지을 재료들만 갖다 놓으면, 비가 올 때 모두 떠내려가서 본래 있던 위치로 가 있게 된다.

17. 새벽 1~2시에서 살려면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자기를 안 만들어 놓고 1~2시에 일어나면, 잠시 그 시간에 있다가 다시 4~5시로 가게 된다.

18. 천국도 자기를 만들어야 간다. 세상에서 자기 욕의 행위로 자기 영을 만든 대로 간다.

19. 자기를 만든 대로 영계도 가 보게 된다. 자기가 지옥 생활을 하면, 자기 혼이 즉시 지옥 지역에 가 보게 된다.

20. 자기를 만들려면 계획과 투자다. 수고다. 열심이다. 힘이다.

21. 창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22.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이시다.

23.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24. 자기 만들기다. 그리고 이상세계 이루기다. 그리고 천국 가기다.

25. 심령을 만들어라.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라. 그래야 만들 것을 만들게 된다.

26. 자기를 안 만든 자에게는 사명을 주지 말고 일을 맡기지 말아라. 자기를 안 만들었는데 사명을 주는 것은 운전을 안 배운 자에게 운전을 맡기는 격이다. 고로 매우 위험하다.

27. 자기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든 자에게 사명을 주고 일을 맡겨라.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낸 땅의 구원자를 만들어서 보내셨다.

29. 자연성전도, 공원도, 집도, 전자 제품도 신비하게 만들어서 편히 쓴다. 이와 같이 자기 만들기다. 자기를 만들면 천국같이 쓰게 된다.

30. 자기를 안 만든 자는 자기를 만든 자와 같은 차원에서 못 산다. 걸리고, 부딪치고, 마음도 안 맞고 생활도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31. 지구 세상에서 생명을 해하려고 원자폭탄과 무기나 만든 자들,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자기 마음과 정신을 무섭게 만든 자들 모두 전능자가 그 행한 대로 멸망시켜 그 영혼을 지옥에 넣기로 판정을 내리셨다.

32. 하나님은 악을 만든 자들과 파괴자들과 폭력자들에게 하늘 군대를 보내시어 모두 파괴하신다.

33. 하나님의 형상과, 성자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라. 날마다 만들기다.

34.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멸하는 자는 선이 되어 선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35. 자기를 안 만든 자가 만든 자를 자기 식으로 다스리고 주관한다. 그러니 안 된다.

<2013년 3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성자 말씀) 내가 해야지 애들 시키면 사고 난다. (꿈에 계시를 보았다. 한 제자가 돌 쌓는 작업을 하다가 세우려던 돌이 그 제자에게 밀려오면서, 구사일생함.)

2. (성자 말씀) 돌 쌓는 일을 해 보지도 않은 서투른 자에게 일을 시키면, 일할 줄 몰라서 사고 나지 않겠느냐.

3. 꿈에 어떤 사람이 자기와 다투는 것을 볼 때가 있다. 경주를 하면서 다투고, 축구경기를 하면서 다투는 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100% 못 하고 80%만 했을 때, 나머지 20% 못 한 일이 자기와 다투는 자가 되어 꿈에 보인다.

4. 자기가 못 하는 만큼 그것이 자기와 다투고 겨루는 자로 보인다. (그림)

5. 가령, 새벽에 기도하려 했으나 눈만 뜨고 못 일어나면, 자기가 제 시간에 못 일어난 것이 자기와 다투고 겨루는 자로 보인다. 이때 자기가 제 시간에 못 일어나니, 자기와 다투고 겨루는 자가 자기보다 앞질러 가게 된다. 제 시간에 일어나면, 자기가 앞질러 가서 이긴다.

6. 자기가 제 시간에 행하면, 늘 자기가 100% 행하기 때문에 자기와 겨루는 자가 패하게 된다.

7. 축구도 자기가 공을 차서 밀고 간만큼 영역을 뺏고 우세하다.

8.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자기'이고, 자기가 행하지 못한 것이 '상대'다. 고로 자기가 100% 행하지 못하면, 자기와 상대가 겨루게 된다.

9. 자기 행하는 것이 자기요, 못 행하고 있는 것이 상대로 보여 자기와 겨루는 자로 보이며 계시하는 것이다.

10. 자기가 100% 행하면, 자기와 다투는 상대는 항상 패한다.

11. 꿈에도 비유로 계시한다. 그 비유를 보고 어떤 여건과 상황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림)

12. 자기가 행하는 일이 더 많으면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못 하는 일이 더 많으면 패하고 있는 것이다.

13.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이 나와 겨루는 자가 되어 꿈에 나타난다. 성자의 계시다.

14.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지 않은 나머지가 나와 다투고 겨루고 싸우는 상대가 된다. 고로 저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자를 사랑하고 자기가 할 일을 해야 자기와 다투는 자를 이기고 승리자가 된다.

15.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고자 하는 마음과 못 하는 마음과의 싸움이다.

16. 겉사람인 육성으로는 못 하고, 속사람인 영성으로는 한다.

17. 자기 혼과 영은 늘 육과 싸운다. 영성이 강하면 육을 이긴다.

18. 자기가 못 하면, 못 한 그것이 자기와 겨루어 자기를 이긴다.
19.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기다.
20. 먼저는 '육'으로 연결되고, 다음은 '영'으로 연결돼야 한다.
21.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다음은 신령한 영이다.
22. 전도할 때도 먼저는 육적으로 연결하고, 다음은 영적으로 연결하기다.
23. 무엇이든지 먼저는 1차원으로 육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다음은 신령한 영의 사람인 분체나 성자에게 연결해서 해야 된다.
24. 먼저는 육의 것으로, 다음은 신령한 것으로다. 신령한 것으로 연결해야 영원하고, 영이 구원받는다. 육도 육으로만 연결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25. 육도 영도 미약하다. 만들어야 강하고, 확실하고, 그 존재가 분명하다.
26. 미완성된 육과 영은 확실하지도 않고 불안한 존재다.
27. 자기 육도 정신적으로 확실한 자로 만들고, 자기 영도 확실하게 만들어라.
28. 전능자 성자의 말씀을 확실하게 행하면서 마치 집을 짓듯이, 조각을 만들듯이 만드는 것이다.
29. 자기를 만들지 않고서 내놓지 말아라. 못 하고, 실수하고, 사고 나고, 기대하는 자들을 실망시키게 된다.
30. 성자와의 사랑은 서로 100% 해야 완벽하다. (그림)

<2013년 3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주인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다르듯이, 주인 되시는 성자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2. 애인의 심정과 타인의 심정이 다르듯이, 성자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은 다르다.
3. 구원자의 생각과 심정은 사람의 생각과 심정과 다르다.
4.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5. 어떤 일을 당한 자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은 다르다.
6. 그 일에 해당되는 자가 받는 고통과 타인의 고통은 다르다.
7. 주인과 일체 되어 함께 당한 자만 주인의 심정을 느끼고 깨달아 주인과 함께하게 된다.
8. 같이 행하는 자만 같이 느끼게 된다.
9. 성자를 못 느끼는 것은 성자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사람이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 되면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고, 몸으로 하나 되면 몸으로 느낀다. 성자 주님도 그러하고, 그 몸 된 분체도 그러하다.
11. 누구든지 성자와 하나 되기까지 행하여라.
12. 성자와 하나 되지 않고 행하면, 혼자 행한 것이다.
13. 자기 책임분담이라고 해서 혼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성자의 뜻을 놓고 자기 책임분담을 하는 것이다.
14. 자기 책임분담이라고 해서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15. 혼자 행한 자는 자기중심이 되어 행했으니, 육적으로 행한 것이 된다.
16. 자기 책임분담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책임분담의 일도 성자 주와 함께 행하고 그 분체에게 코치를 받으면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육적인 것이 안 되고 영적인 것이 된다.
17. 사람의 지체 중에서 손이 행할 책임분담이라 해도 손만 하면 제대로 못 한다. 항상 손이 머리의 생각과 일체 되어야 일이 제대로 된다. 그와 같이 자기 책임분담도 성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체요, 성자는 머리이다.
18.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자기 책임분담이다. 그렇다고 혼자서 회개가 되겠느냐. 자기가 회개했어도 죄를 용서받았는지는 모른다. 7일, 10일, 21일 금식하는 것이 회개의 법이 아니다. 울고불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리고 성자가 보낸 자가 회개의 법이다. 죄를 주관하는 자의 이름을 대고 그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물어보고, 확인받아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가 된다.
19. 주와 함께, 성자와 함께 행한 것만 의의 공적으로 인정된다.
20. 가령, 혼자서 착하게 살았다 하자. 그 착한 일로 구원받겠느냐. 못 받는다. 주와 함께, 성자와 함께 해라. 그러면 주의 몸이 되고 성자의 몸이 된다. 고로 구원받는다.
21. 누가 자기 몸을 해하게 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라. 그러면 삼위일체의 몸이 된다. 그러면 삼위가 자신의 몸을 해하게 하시겠느냐.
22.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부르면서, 나를 해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누가 내 몸과 혼과 영을 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너는 내 몸인데, 내 몸을 해하게 두겠느냐.” 하셨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듯, 너희 몸도 그같이 보호하신다.
23. 사탄도 자기 것이 된 자를 누가 해하려 하면, 자기가 취한 생명을 안 뺏기려고 반항하며 싸운다. 그러나 사탄은 악이라서 항상 하나님 편에게 패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인간의 제도를 초월하여 행하신다. 인간은 인간의 체질·습관·제도·정해진 공식 안에서 그 주관을 받으면서 산다. 하지만 성자가 함께하시면, 인간의 주관을 벗어나서 행해진다.
25. 인간의 공식은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난다. 이는 육신을 가진 자들의 공식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하면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고, 1시간만 자도 일찍 일어난다.
26.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일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다.
27. 성자와 함께하면, 자기 제도와 환경과 공식에 상관없이 표적이 일어난다. 자기 제도와 환경과 공식을 따지면서 못

한다고 하며 할 일도 안 하면 안 된다.

28. <야심작 돌 조경>도 인간의 공식으로 쌓지 않았다. 인간의 공식을 벗어나서 삼위의 능력과 표적으로 쌓았다.

29. <성전 안 분재 돌>도 인간의 공식으로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가지고 오는 돌이다. 인간의 공식을 벗어나서 삼위가 함께하시어 그 돌을 발견한 즉시 그 자리에서 큰 바위를 넘겨서 가지고 왔다.

30. 서해안 밀물이 인간의 공식으로 멈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능력으로 멈췄다.

31.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인간의 공식으로 멈췄느냐. 하나님이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그곳에 오셔서 미국을 심판하러 가신다고 하면서, 그 표로 포딕슨 해변의 밀물을 멈추셨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바로 전 날 일어난 일)

<2013년 3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속고 산다.

2.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는 않지만, 기대에 어긋남을 받고 사신다.

3. 하나님을 믿어도 파악하지 않고 믿으니, 속고 살게 된다.

4. 사람을 만나면 먼저 온전히 파악해야 된다.

5. 확인하지 않고 ‘이런 일 없겠지.’ 하고 믿으면 속는다. 믿을수록 파악이다.

6. 인간은 자기 죄와 모순은 숨기려한다.

7. 성자의 육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다.

8. 회개하기 싫으면, 네 짓값을 받으며 너 스스로 싸우고서 이기고 올라와라.

9.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왜 안 도와주느냐.” 하지 말아라.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주를 믿고 죄에서 나와라.

10. 왜 사탄을 안 없애 주냐고 하지만 말고, 네가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된다.

11. 자기가 사망의 세계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께 왜 사탄을 안 없애 주느냐고 하지만 말고, 네가 거기서 나와라. 사망의 세계에서 나오면 사탄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

12. (꿈이 변화무쌍하다고 기도하니, 성자 주님은 말씀하셨다.) 상황이 다를 뿐이다. 변화무쌍하지는 않다.

13. 꿈이 변화무쌍한 것 같아도 꿈은 각종 상황을 따라서 보여 주는 계시이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14. 꿈은 자기 마음과 행실에 따라서 성자 주께서 비유로, 혹은 여러 가지 환상으로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5. 존재 세계는 변화무쌍하지 않다. 자기 ‘마음’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따라 꿈에도 변화무쌍하게 여러 가지 상황이 보이는 것이다.

16. 자기 입장, 상대 입장, 주님의 입장을 보이며 비유한 것이다.

17. 꿈에 아랫집 사람이 악기로 노래하며 소리를 내니, 윗집 사람이 와서 “앞으로 악기 가지고 노래를 하든지, 소리 내어 공부를 하든지 내게 먼저 이야기 안 하고 하면 악기를 모두 때려 부수겠다. 이것이 법이다. 내게 먼저 이야기하고 하면, 법이 있으니 나는 못 때려 부순다.” 했다. / 꿈을 깨닫고 보니, 이와 같이 성자 주님께 보고 안 하고 하면 모두 때려 부순다는 계시였다. 성자 주님께 보고하고 주께서 허락한 것은 못 때려 부순다는 계시다.

18. 기도하다가 슬쩍 잠이 들어 꿈을 꿔다. 외국 차 한 대가 있었다. 동생에게 “이 차는 시속 몇 km까지 달릴 수 있어?”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동생이 “시속 60~70km까지 달려요.” 했다. 이에 선생은 “사실이 그렇다면 이 차는 팔고 다른 것을 사야 되겠네.” 했다. / 기도 중에 주님께 물으니 “지금 너의 기도 속도가 60~70밖에 안 나온다 함이다.” 하셨다.

19. 꿈에 내가 쓰던 방에 가 보니, 한 여자가 내 방에서 자고 있었다. 또 다른 방에 가 보니, 거기에도 또 한 여자가 자고 있었다. / 기도 중에 주님께 물으니 “지금 네가 기도 중에 자고 있다.” 하셨다. 기도하다가 무의식 중에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는 것이다. 나의 현 상태를 꿈으로 본 것이다.

20. 기도 중에 보니,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좁은 곳으로 빠져나가다가 옆 차에 걸려서 못 빠져나가고 있었다. 주님께 물어보니 “지금 네가 기도하는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어서 그 수준에서 못 빠져 나가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하셨다. 다시 깊이 기도하여 결국 주님을 만나고 말았다.

21. 어느 때는 자기 육신이 자기 마음과 정신에게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편한 기도를 하면 그렇다.

22. 마음이 졸면, 육신이 졸게 된다.

23. 주와 기도다. 그래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다리가 저린지 아픈지도 모르고,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

24. 정신계, 곧 잠재의식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25. 기도할 때뿐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육의 의식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

26. 말씀을 전할 때 주와 함께할 때 영적 차원에서 전하게 된다.

27. 성자 주님은 육신을 쓰고 역사하시되, 세상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또한 그 사명자의 육신 자체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성자의 영체가 세상 사명자의 육체를 보이면서 행하신다.

28. 휴거될 영은 자기 뇌에 오직 주님 사랑만을 꽉 채워야 된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을 위한 것이다.

29. 성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는 자만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30. 하늘의 공의 법에는 오직 의를 행하는 자만 의의 차원에 올라 의를 느끼고 얻게 하셨다.

31. 하늘의 공의 법에는 악을 행하는 자만 그 행한 악을 받게 하셨다.

<2013년 3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인간은 ‘만들기’다.

2. 사람은 만들기에 따라서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된다.

3. 사람은 만들기에 따라 의인도 되고, 사람으로서 천사도 되고,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천인도 되고, 사람으로서 신도 된다.
4. 하나님도 성자도 인간을 한없이 만드신다. 만들지 않고서 하늘나라에 갈 자는 한 명도 없다.
5. 인간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6. 만드는 대로 되고 만다.
7. 사람을 세상적으로 만들기는 아주 쉽다. 악하게 만들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온전히 만들기가 그리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영원히 간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자가 그리도 귀하다.
9. 인간은 태어나서 매일 만들어진다. 육신도 관리하는 것에 따라 성장하고 만들어지듯이, 혼과 영도 마음·정신·생각과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10. 변화하기다. 더 좋게, 더 빛나게, 더 새롭게, 더 온전하게 만들기다.
11.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는 연필이나 붓을 가지고 백지에 점을 찍으면서 시작한다. 하루 온종일, 혹은 한 달, 혹은 6개월, 혹은 1년 동안 그려서 완성한다. 인간도 점과 같은 생명체로 육신을 만들고 키운다. 이와 같이 혼과 영도 만들기다. 변화시키기다.
12. 빌딩을 건축할 때 처음에는 삽질을 하면서 시작한다. 그렇게 수년 동안 만든다. 이와 같이 인간도 만드는 것이다.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13. 온 세상을 보아라. 저마다 각종각색으로 개성대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라는 인생 집도 수십억 가지로 짓고 산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상에서 합당한 사람을 택하여 시대 중심인물, 혹은 선지자, 혹은 사사, 혹은 메시아, 혹은 사도, 혹은 목사 등 각종 사역자로 만들어서 쓰신다.
15. 자기를 귀히 만들어야 된다. 귀히 만들면 귀히 쓰여진다.
16. 땅을 위해 육적으로도 만들고, 하늘을 위해 영적으로도 만들어 놓으면 양단으로 쓰여진다.
17. 월명동은 하나님의 구상으로 성자와 함께 만들었기에 전과는 수백만 배 달리 귀하게 쓰이고 있다.
18. 만드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19. 매일 자기를 만들어라.
20. 만드는 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면, 생각하기다. 행하기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21. 같은 사람 같아도 만든 대로 개성의 차이가 그렇게도 다르다.
22.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든 자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지 않은 자와 비교해서 볼 때 하늘과 땅 차이다.

23.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만들어 놓은 자와 안 만든 자의 차이는 포클레인과 샵 차이다.
24. 세상에서 그냥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만들어 놓은 자와 보통으로 만든 자는 상상도 못 하게 차이가 난다.
25. 무엇을, 어떤 것을 만들어 놓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
26.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것을 놓고 얼마나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
27. 사람은 메시아를 통해 하늘의 법, 곧 말씀을 듣고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만들어서 천국에 간다.
28. ‘영’도 처음에는 육같이 아기로 시작한다. 육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면서 세상에서 살듯이, 영도 만들어지고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완전히 만들어지면 ‘구원’이라는 단계로 올라가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가게 된다.
29. 온전하게 못 만든 영은 온전하지 못한 영계에 간다. 언제라도 영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온전한 영계에 간다.
30.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자기 영을 만든 대로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고, 그에 해당되는 영의 삶을 누린다. /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보아라. 차도, 음식도, 건물도, 기계도 만드니까 전혀 다른 것이 되지 않았느냐. 만드니까 차가 만들어지고, 음식이 만들어지고, 건물이 만들어지고, 상상도 못 하는 기계가 만들어진다. / ‘인생’도 만들어야 하찮은 자도 귀한 자가 되어 천국도 가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 만든 후와 만들기 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느냐.
31. 무(無)에서 시도 지어 만들고, 글도 지어 만들고, 기도하여 잠언도 받아 만들고, 설교도 만들고, 말도 만들어서 말씀 전한다.
32. 자기를 아름답게 만든 것과 안 만든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33. 모양을 만들고, 마음과 정신과 행위를 만들어라.
34.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팔방미인도 병들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35. 자기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된다.
36. 같은 바닷가라도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차이가 많다. 같은 아파트라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차이가 많다.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37. 하나님은 땅에서 메시아를 만드신다. 전능하신 성자가 만들어 그 육으로 쓰신다.
38. 사람은 영 하나에 육 하나다. 그 사람의 영의 육신은 그 사람이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성자의 영도 하나이고, 그 육으로 쓰는 자도 하나다. 그가 구세주다. 성자는 그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고 시대를 다스리신다.
39. 볼펜도 만들어 났기에 지금 볼펜으로 글을 쓰고 있다. 볼펜을 안 만들었을 때는 기름과 잉크와 플라스틱이었다. 그 것도 안 만들었을 때는 다른 존재물이었다.
40. 자기를 만들어라. 성자의 상대가 되게 만들어라.
41. 육이 있으니, 성자의 육과 함께 만들어라. 영과 육이 함께 행해야 혼과 영이 만들어진다.

42.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라.

43. 만들기다! 곧 생각하고 행하기다!

44. 오늘 새벽에 혼계에서 내 혼이 어떤 큰 부잣집 응접실에다 샘을 파고 있었다. 그곳의 흙과 돌은 매우 단단했다. 그것을 손으로 하나하나 파내기 시작했다. 주인은 보고서 “어? 물이 나오네. 더 파면 샘이 되겠다.” 했다. 나는 “걱정된다. 아래층이 있어서 무작정 계속 파다가 아래층 천장을 파 버려서 헛일이니, 바닥 두께를 재보면서 파자. 60cm 정도만 파야지, 더 깊이 파면 안 된다.” 하고, 건물 바닥 두께를 재보고서 15cm만 남겨놓고 파기로 했다. 계속 돌을 꺼내고 물이 나는 것을 보면서 파다. 결국 정리를 다 하고 보니 유리 항아리가 되었고, 바닥에서 물이 솟았다. 물은 젓가락 정도 굵기와 길이로 솟았다. 또 물이 넘쳐서 마루까지 차니 “어떡하지?” 생각하며 연구했다. 결국 전기 스위치가 옆에 있어서 스위치를 끄니, 물이 멈추었다. 주인이 “멋있다. 응접실에 샘이 있다니...” 하면서 좋아했다. 파란 유리 항아리 같은 샘이었다. 그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으니, 누가 봐도 신기해하며 거기 앉아서 샘을 쳐다봤다. 내가 샘을 파 놓고서도 너무 신기해서 자세히 보니, 샘 옆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었다. 하나는 전기 스위치인데, 끄면 물이 나오다 멈췄고, 하나는 에너지 스위치 같았다.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자세히 보니, 바닥의 흰 호스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때 “만들기에 따라 되는 것이구나.” 했다.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수고하면서 혼과 영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만들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메시아도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 만든 것이다.

45. 그 집의 동쪽에 가 보니, 아담한 방이 하나 있었다. 그 집 아들 방이었다. 아들이 책상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긁으면서 초상화를 뜨고 있었다.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다. 너무 잘 만들었다. 미술한지 몇 년 되었냐고 물으니, 10년 됐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예술을 하니, 그 작품을 잘 만들어서 내 작품전 때 같이 전시하자.” 했더니 좋아했다. 옆을 보니, 플라스틱 그릇 하나가 그림을 그릴 때 거치적거렸다. 그래서 손으로 집어서 확 던지니, 바람에 밖으로 끌려가서 이리저리 굴러 다녔다. 내가 주우러 가니, 이미 깨져 버렸다. 잠시 후에 그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여 외부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들 일곱 명이 조장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그 중의 두 명이 서로 말로 심정이 부딪쳐서 주방에 안 들어가고 내가 파 놓은 샘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초상화를 뜨고 있었던 그 집 아들이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양쪽 주먹만 한 누룽지를 들고 먹고 있었다. 내가 “나 누룽지 좋아해.” 하니, 그 집 아들이 누룽지를 반쯤 쪼개서 주어 먹었다. 그 ‘누룽지’는 오늘 새벽 잠언을 말한다. 응접실에 판 ‘샘’은 샘도 만들면 되듯이, 인생도 만들어서 천국에도 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서 선지자나 메시아로 쓰신다 함이다. 음식을 만드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 심정 상한 것은 섭리인들끼리 서로 심정이 안 맞아 다투고 일을 안 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샘을 판 것은 선생이 맨손으로 잠언을 쓰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그 집 주인은 성자 상징이다.

46. ‘계시’는 될 일을 비유로 보여 준 것이다.

47. 어느 때 깨우쳐 주기 위해 실제로는 비행기를 타는데, 계시로는 배를 타는 것으로 보여 준다. 어느 때는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보여 주기도 한다.

48. 비유가 아니면 계시를 할 수가 없다.

49. 비유를 모르면 계시를 줘도 모른다. 겪어 보면 그때는 비유가 깨달아지면서 “이것이구나!” 알게 된다.

50. 혼계에서 보이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 비유로 보여 주기도 하고, 실제로는 전혀 없는 것이지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유도 있다.

51. 볼펜 뚜껑도 맞는 것과 안 맞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안 맞으면 안 들어간다. 늦더라도 제 짝을 찾아라. 짝이 있다. 그 볼펜에서 뚜껑을 뺐으니, 그 짝이 있지 않겠느냐. 만사에 모두 맞아야 산다. 맞아야 편하다.

52. 얼마나 사랑해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결과는 세상으로 갔다.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도

결과는 하늘로 솟아 귀하게 되었다. 왜 그럴까? 본인이 얼마나 간절한가, 본인이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자기 행위가 상대도 만들고, 자기도 만든다.

53. 간절함과 사모함은 ‘도’다. ‘영력’이다. ‘차원성의 생명’이다.

<2013년 3월 15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잠언>

1. 지나친 책망은 오히려 자기에겐 화가 된다.
2. 책망할 자도 아닌데 책망하니, 어이없고 억울하여 주 앞에 보고한다.
3. 흔히윗사람은 누구나 아랫사람을 잘 책망한다. 습관이 들었다.
4.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이 한 가지를 잘못하면 무리하게 세 가지씩 책망한다.
5. 세상 사람들과 구시대인들도 눈이 멀고 악심이 있어, 이 시대 성자의 본체를 그같이 책망했다.
6. 자기를 구원하려 온 자를 원수시하고 가뒀 놓고, 좋아서 손뼉 치고 만세를 불렀다.
7.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가? 삼위의 사명을 받은 자다. 그들이 고통받을 때가 점점 다가온다.
8. 하늘의 사명자에게 고통을 주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고통을 준 것이 된다. 고로 그 행한 대로 하늘의 사명자가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 그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 사망이 그들을 덮치는데 어떻게 피하겠느냐.
9. 아합 왕, 사울 왕,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두고 고통을 주고는 좋아서 박수 치고 만세를 불렀다. 결국 때가 되니 죽음이 그들을 삼켰고, 음부와 지옥이 그들을 삼켰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다.
10. 평화를 깨부수고 좋아서 박수 치고 만세를 부르는 자들은 성자가 보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11. 부분적으로만 생명을 대하면, 신의가 무너진다.
12. 사명을 가진 만큼 인격도 가져라.
13. 상대의 심정을 상하게 하면, 자기도 심정 상하는 일을 당한다.
14. 집을 부분적으로만 지어 놓으면 부분적으로만 편히 사용하듯이, 자기 마음도 부분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부분적으로만 편하다.
15. 완공해야 완전하게 사용한다.
16. 100% 완공하지 못하고 80%만 하면, 나머지 못 한 것 때문에 80% 해 놓은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허사가 되어 버린다.
17. 가령 집을 지을 때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문도 만들었다 하자. 그런데 방바닥을 못 만들고 끝나면, 나머지 못 한 것 때문에 그동안 수고하여 해 놓은 것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허사가 된다.
18. 기어이 100% 완공해야 그동안 수고한 80%가 헛되지 않는다.
19. 휴거도 구원도 마찬가지다. 100% 완전하게 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면, 나머지 못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휴

거되려고 80%, 90%, 95%까지 한 것도 헛되게 된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다. 고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100% 완전하게 해야 된다.

20. 자기 마음과 성격을 100% 온전하게 못 고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못 고치면, 못 고친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잘한 것까지도 무너진다.

21. 1역을 들어서 시계를 다 만들어 놓고 시침과 분침과 초침만 안 끼웠다 하자. 나머지 못 만든 것 때문에 1역을 들어서 만든 시계까지 사용하지 못한다. → 이와 같이 저마다 자기 마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완공하지 못하면 10년, 20년, 30년, 40년 수고하여 만든 것까지 무너져 천국에 가지 못한다. 천국은 100% 자기 마음과 행실을 만들고, 그 마음과 행실로 자기 영을 100% 만들어야 가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전심을 다해 행하여라.

22. 100% 완공했을 때만 완공한 대가를 주신다. 누구든지 ‘얼굴’도 ‘사명’도 안 본다. 이제 온 신입생이라도 완공했으면 주고, 오래된 자라도 완공하지 않았으면 안 준다.

23. 선생이 오랫동안 한 생명을 관리했다. “너는 성자 주님과 선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라.” 했다. 그 생명은 95%는 성자와 선생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데 5%는 마음과 행실로 대답을 하지 않고, 95% 선에서만 살았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신입생이었는데, 말씀을 배우는 중에 “너는 이렇게 살겠냐?” 하니,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100% 마음과 행실을 보이며 대답했다. 그는 완공했다. 결국 빛나는 별이 되었다.

24. 성자께서 꿈에 자기 상태를 여러 가지로 보여 주신다. 곧 자기 행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완공됐는지, 안 됐는지 그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25. 완공하여라!

26. 자기를 완공하여라.

27. 완공하지 않으면, 성자와 분체의 부분적인 신부다.

28. 완공이 안 된 물건이나 사람은 ‘그 가치’가 최고는 못 된다.

29. 성약의 사명자는 <재림과 휴거>, <성자 본체와 분체>, <창조 목적>, <천국과 낙원>, <영 - 혼 - 육> 등 모든 진리를 완공했다. 진리를 완공하는 데 공적으로는 35년이 걸렸고, 배우는 기간까지 하면 55년이 걸렸다. 이제 성약의 완전한 진리가 완공되었다.

30. 구시대 진리는 부분적인 말씀이다. 고로 구시대 진리로는 영혼을 완공시키지 못한다.

31. 시대 사명자는 누가 재림하는지 완전히 알았고, 육 휴거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알았고, 영 휴거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알았고, 성경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전히 풀고 알았다. 모두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정·녕·코 천국을 상속 받는다!

32. 기성은 진리의 완공을 못 했다. 학문으로 풀었기에 부분적으로만 맞고 전체적으로 보면 틀리다.

33. 성약 역사를 펴려면, 하나님과 성자의 비밀의 말씀을 완전히 알아야 된다. 부분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 지구 세상에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완전히 아는 자는 없다. 오직 새 역사 삼위의 뜻을 펴 사명자만 안다.

34. 네 마음을 성자와 같이 온전히 하여라.

35.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우냐. 집을 완공하라는데 뭐가 그리 어려우냐. 집을 지을 때 80%, 90%까지

만 하라는 말이 옳은 말이나, 100% 완공하라는 말이 옳은 말이나. 육적인 집도 완공하는데, 너라는 집을 완공하지 못한다 하느냐. 왜 남도 아닌 자기 마음을 만드는 것인데 완공하지 못하느냐. 완공하면 영·원·히 누리고 사는 천국에 간다.

36. 섭리역사도 완공해 가는데, 자기 마음과 성격과 행실을 완공하지 못하느냐. 자기를 중심해서 살면서 화내고 성질부리고, 자기 스트레스를 형제에게 푸는 자들아. 그 악을 다 고쳐라.

37.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자를 영으로 꿰뚫어 보니, 그의 사랑의 지체에서 다 불은 국수 같은 벌레가 계속해서 나왔다. 자기 성격과 행실을 못 고친 자를 영으로 보면 그같이 엄청나다.

38. 입을 사랑의 지체로 보여 주었다. 사랑의 지체에서 다 불은 국수 같은 벌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누가 가까이하겠느냐. 그러니 입조심, 혀 조심이다.

39. 치타가 물소의 혀를 깨물며 잡아당기는 이 그림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했다. 이 그림은 그 말씀을 보고 그린 것이다. 혀를 조심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 꿈에 보니, 혀를 조심하지 않아 그 혀로 당한 자가 조심하지 않은 자의 혀를 물어뜯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해당 그림 준비해 주고, 설교 때 보여 주기)

40. 어떤 교역자가 하늘 신부에게 말을 지나치게 했다. 육으로는 당해도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 영으로는 당한 자가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한 자의 혀를 물고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로 인해 말을 함부로 한 자가 고통을 겪고 있었다.

41. 섭리사의 어떤 사람은 성자와 분체가 성령의 사역자로 귀히 쓰는 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며 욕설을 했다. 육으로는 당한 자가 며칠씩 분하여 잠도 못 자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니, 영으로는 당한 자가 말을 함부로 한 자의 혀를 물고 잡아당기고 있어 그로 인해 말을 함부로 한 자가 고통을 겪고 있었다.

42. 섭리인 모두 형제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형제가 싫어하며 대하듯이 성자도 분체도 싫어하며 대한다.

43. 은밀히 이야기하니, 모두 자기라는 것을 깨달아라!

44. 성자께서 선생을 통해서 이야기로 계시를 말한다.

45. 말씀을 듣고서 성자께 회개해야지, 절대 변명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고쳐라. 지금은 영 휴거 때이니 흠 없게 하여라. 영은 너의 흠 때문에 통곡하며 미친다. 어서 고쳐라!

46. 변명하는 자는 어렸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더니, 지금 다 커서 인생 청춘이 늘어 가는데도 변명만 한다.

47. 자기 죄는 변명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육으로 보고 변명하지 말고, 영으로 보고 변명하지 말아라. 주는 안 속는다.

48. 성자가 세운 자들은 모두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인격의 본이 되어라.

49. 섭리사에서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가 최고 미인이고 미남이며, 성자의 참된 신부다.

50. 악평자들은 얼굴과 몸이 병신이 아니다. ‘말’이 병신이다. 그로 인해 ‘행실’까지 병신이 됐다. 결국 ‘영혼’까지 그같이 되었다.

51. 항상 언제나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성자가 그 속에 있다.

52. 전능하신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지적하는데, 그 말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싫어해 보라. 결국 너에게만 해가 된다. 변명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여라. 편지를 보내도 회개 편지를 보내지 않고, 교인들에게 변명만 한다. 그 소리가 다 들린다.
53. 변명하는 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며 회개했어도, 분체에게 자기 죄를 제대로 고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냥 있다. 누가 그 죄를 사해 주느냐.
54. 성자께서 변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신다. 들어 보라. “‘변명’이란, 자기 죄를 형제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다. 그러니 내 분체에게도 자기 죄를 덮어씌우지 않았느냐. 염소와 가인들이 변명하면서 자기 죄를 형제에게, 분체에게 덮어씌운다.”
55. 영계로 보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자기가 행한 것은 일점일획까지 그대로 흰히 투명체로 보인다.
56. 죄를 짓고서도 자기 죄를 모르니, 그 죄가 자기를 병들게 한다.
57. 아무리 멋있더라도 죄가 있는 자는 그 면에 더러움이 붙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전체가 빛을 잃는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자기 행위를 자기 혼체로 반영해서 보며, 회개하는 것이다.
58. ‘회개’란, 하나님과 성자와 분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자기가 잘못된 자에게 진정 회개하여라. 그리고 성자에게 회개하여라. 이를 확인받으려면 분체에게 말하여 용서와 사함을 받아라.
59. 지도자에게, 혹은 형제에게 당하고 나서 선생에게 다섯 장씩, 열 장씩 보고를 한다. 고로 다 안다. 진실로 용서받지 못한 것은 선생에게도 기록이 남아 있고, 하늘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진실로 용서받은 것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기록을 없앤다.
60. 교역자들에 대한 보고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다음은 각 부서 지도자들과 교회에서 일 맡은 자들에 대한 보고가 많다. 당한 자는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네가 참고 용서하여라. 그에게 가는 복을 너에게 주리라.
61. 자기가 못 한 만큼 자기 복이 자기가 잘못 대한 상대에게 간다. 성자의 법을 알아라.
62. 성경을 보아라. 행한 자에게 복이 갔다.
63. 마태복음 22장 37-40절을 보면,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자 사랑, 형제 사랑이다.
64. 성자는 사랑하면서 성자가 사랑하는 자는 함부로 대한다. 성자는 그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
65. 자기 교인만 사랑하지 말고, 섭리인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성자의 마음이다. 분체의 마음이다.
66. 목회자가 되면, 마음이 좁아져 자기 교인들만 챙긴다.
67. 평신도는 세계를 살피고 전국과 전체를 볼 줄 안다.
68. 교역자가 되기 전에는 섭리인 전체를 사랑하다가도 교역자만 되면 다른 교인들과 타 기관에 속한 자들을 남의 자식같이 보고 대한다. 그 마음 그릇의 크기가 자기 교인의 수만큼밖에 안 된다. ‘온 집 같은 사랑’이 아니고, ‘그 집의 방 하나와 같은 사랑의 그릇’이다. 그런 자는 성자와 분체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69. 큰 그릇이 되어라. 섭리 전체의 그릇이 되어라. 목회는 몇 년 하고 바뀐다.

70. 각 부서의 부서장들도 자기 부서만 사랑한다. 작은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다.

71. 자기 부서만 사랑하고, 자기 교회만 사랑하는 지도자들아! 전능하신 성자는 전체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전체를 사랑하여라.

72. 중앙에서 할 일은 중앙에서 하고, 교회에서 할 일은 교회에서 한다. 교회 안에서도 중앙에서 할 일은 중앙 지도자들이 한다. 각 중앙은 선생이 회장이 되어서 한다.

73. 중앙 센터의 일은 중앙에 소속되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에만 속해 있으면 교회 단위로만 하고 작게 크다. 지역, 민족, 세계의 일을 못 한다.

74. ‘소속’은 두 겹 줄이 되어야 한다. <교회 소속> 한 겹 줄, <부서 소속> 두 겹 줄이다. 나라는 나라끼리 조직하여 세계로 뻗어 가라!

7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두 겹 줄로 조직하여 행하신다.

76. 교회에만 소속되어 있으면 크지 못한다. 민족 대회에 못 나간다. 세계적인 올림픽 경기에도 자기 회사 이름과 자기 학교 이름으로는 못 나간다. 나라의 이름으로만 받아 준다. 섭리사도 이와 같다. 모두 이를 알고 교회와 중앙은 교통하여라. 선생이 교회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지 않느냐. 이 법을 모르니까 계속 부딪친다. 고로 성자께서 “나의 말을 기록하여 내보내어 섭리사의 법으로 삼아라.” 하시어, 몸부림쳐 성자의 잠언을 받아서 보낸다.

77. 교회와 중앙은 서로 부딪치지 말아라. 선생이 시켜서 하는 것인지 물어봐라. 중앙은 교회에 소속된 자들과 일할 때 반드시 먼저 교회 목사와 그 교회 지도자와 의논하고 행하여라.

78. 교회에 해당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거쳐서 행한다.

79. 그러나 선생이 은밀하게 지시한 일은 중앙에서 교회를 거치지 않고 본인에게만 전하기도 한다. 이때는 목회자와 그 교회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행한다. 성자와 개인이 일대일이 되어 행하기 때문이다.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서 직접 시킨 일은 교회 목회자나 소속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서 행한다. 그러니 “왜 교회를 거치지 않고, 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모르게 했지?” 하지 말아라.

80. 어느 때는 중앙도 안 거치고,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서 개인에게 직접 전할 때가 있다. 그러니 중앙에서는 “왜 중앙을 안 거치고 모르게 했지?” 하지 말아라. 성자와 분체는 일대일의 왕이다.

81. 하나님께서 중심자 아브라함만 거쳐서 가셨듯이, 분체만 거쳐서 본인에게 가는 일이 있다. 이성 문제에 대한 것도 책임자 분체와 본인만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해당 지도자는 몰라도 될 것이 있다. 지도자가 알면, 지도자가 그 생명을 의식하고 대하니 그가 크지 못한다.

82. 전능자 삼위일체는 개인에게 왕이다.

83. 분체는 성자의 육이라 성자께서 분체를 거쳐 행하신다. 어떤 사람의 문제를 지도자를 거쳐서 처리했더니, 그 지도자가 소문을 내면서 “왜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일을 주지?” 했다. 그것을 해명하려면 분체가 지도자의 제자가 된다.

84. 혼자 성자와 통하다가 사탄에게 잡힌다. 반드시 성자의 육을 통해서 성자에게 나아가라. 본인이 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85. 목회자는 ‘교회’에도 소속하고 ‘교단’에도 소속하여 두 겹 줄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인정된 목회자다. 그렇지 않으면

고립된 자다.

86. 예술단들도 ‘교회’에도 소속하여 활동하고 ‘중앙’에도 소속하여 활동하여라. 두 겹 줄이 되어 활동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되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87. 선생이 성자께 묻고 결정할 것을 교역자가 마치 집을 다 지어 놓듯이 미리 계획을 짜 놓고 선생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교회와 중앙에서 하는 집회나 조직 등 모든 일을 할 때 그러하다. 그렇게 하면 집을 지어 났어도 헐듯이 할 것이다.

88. 나이를 먹으니 감각이 떨어지고 감도가 흐려진다. 고로 섭리사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50세부터 퇴직을 시킨다. 감각과 감도를 높여라. 퇴락한 기둥 열 개 중에서 아홉 개만 고치지 말아라. 열 개를 다 고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아예 다 헐어 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짓듯 하여라! 그래야 쓴다.

89. 목회하다가 실력이 안 되어 교체된 교역자는 최하 1~2년 동안은 실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 휴거 받을 생명들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90. 목회하면서 부흥시키지 못한 목회자는 다시 목회자 사명은 안 준다. 각자 재능대로 일을 맡긴다.

91. 목회를 맡길 때는 항상 지난날 목회했던 ‘내신 성적’과 ‘공적’을 근본으로 본다.

92. 부서 중앙 지도자들과 각 기관의 지도자들은 항상 교단과 의논하고 하늘 앞에 보고를 올려라. 같은 것을 각자 따로 올리면, 결재를 해 줘도 서로 일을 하는 데 부딪친다.

93. 각 부서들이 하는 행사나 집회는 선생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단을 거쳐서 와야 된다. 여기서는 현실 파악이 안 된다.

94. 표상 교회로 연결할 것은 표상 교회로 연결하여 의논하여라. 분체에게 직접 물을 것만 직접 물어라.

95. 법을 다 정해서 해도 모순이 있고 안 정해서 해도 모순이 있다. 모든 사건은 사건대로 그때마다 가장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것을 모른다. 고로 법을 정한다. 법을 정해 놓으면, 행하면서 서로 눈치 안 보고 행하게 된다. ‘표준’을 두고 하니까 서로 부딪치지 않는다. 오직 하늘만 모든 것을 아시니, 그때그때 합당하게 법을 주고 한다.

96. 서로 잘해도 부딪칠 때가 있다. 고로 섭리사에 법을 하나씩 정하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 보게 하여라.

97. 이미 하늘 법을 정하여 선포하지는 않고 그 행위대로 하고 있다. 이성 법도, 스타 법도, 목회자 법도, 결혼식 법도 성자는 법을 정해 놓고 법에 의해 공의롭게 행하신다.

98. 사명마다 법이 다르고, 개인마다 법이 다르다. 법에 대한 책을 쓰려면 사명마다 개인마다 다르다.

99. 축구할 때도 골키퍼 법이 다르고, 공격진 법이 다르다.

100. 분체의 법이 다르고, 구원받기 위해 따르는 자들의 법이 다르다. 왕의 법이 다르고, 백성의 법이 다르다.

101. 성령의 법이 있다. 모든 역사는 전능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로부터 일어난다. 그리고 삼위는 오직 그 분체를 통해서 행하신다. 그리고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서 행하시되, 그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각 지체를 세워 행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서 행하시되, 성령께서 땅의 핵심 상징체 한 사람을 그 몸으로 삼고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모르니 성령이 감동으로만 오는 줄 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성령을 받는다 한다. 성자께서 성령님과 그 분체와 함께 부흥강사를 세워서 ‘시대 말씀’을 핵심으로 잡고 성령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주 편)

사람이 행하지 않고 나 성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행하니, 이를 모르고 행하면 나와도 내 분체와도 멀어지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102. ‘은혜’는 금방 식는다. ‘말씀’은 사상이 굳어지게 한다. 고로 말씀으로 사상을 세운 자를 뽑아서 쓴다.

103. (주 편) 누가 나 성자와 내 분체의 혈육이나? 누가 가장 가까운 자냐? 나 성자와 내 분체가 <시대 말씀>으로 ‘사상을 온전히 세운 자’를 <사랑>으로 기른 자가 혈육보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자다. 땅과 하늘의 조건을 세워 뽑힌 자 앞에 그 누가 “나는 혈육이다. 나는 가깝다.” 자랑하느냐. 시대 말씀과 사랑으로 나 성자와 내 분체가 키워 그 상대체로서 조건을 세우며 산 자가 가장 큰 자요, 나와 내 분체와 가까운 자다. 모두 그리하여라.

104. 올해는 <말씀의 해>다. 성약역사 부활과 독립의 해부터는 ‘말씀’으로 사상을 온전히 세운 자를 뽑아서 쓴다.

105.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과 사명을 바꿀 때는 꼭 목회자의 의견서와 당사자의 의견서와 그 바로 위 지도자의 의견서가 같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 스스로 사명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분체 네가 해라.”라는 법이 생겼다.

106. 목회자 스스로 일할 자를 세우고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자는 목회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 행하는 자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107. 양쪽 보고를 듣기 전에는 하늘도 결재를 못 한다.

108. 하늘의 결재 없이 행하거나, 보고를 해도 자기 좋은 대로만 보고하여 허락받고 행하여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지고 그 자리는 사명 교정을 한다.

109. 교회에서 초청 강사 집회를 해 보고서 말씀을 들어 보고 좋고 이상적이면, 그 강사는 집회 자격이 되는 자다. 자격이 돼도 합당할 때만 한다. 집회에 중독되면, 자주 집회를 해 줘야 되니 합당치 않다. 1년에 정기적으로 가장 합당한 때에 초청 강사 집회를 한다.

110. 집회는 성자가 원하고, 교회가 원해야 된다.

111. 성자와 분체의 말씀으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성령집회를 하는 것이 최고 꾸준한 집회이고, 말씀도 최고 깊고 큰 집회다.

112. 체육대회 때 크게 한 번 운동하면 몸이 풀린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 근본적으로 몸이 안 풀린다. 생활 가운데 운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회만 중심하면, 체육대회 때만 운동하는 것과 같다.

113. 매일 운동하는 자가 건강이 최고 좋다. 매일 등산하기, 매일 뛰기, 매일 근력 운동하기다. 이는 각 교회에서 성자와 분체를 통해서 주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다. 관리다. 가르치기다.

114. 올해 모든 집회는 <말씀과 전도 집회>다.

115. 소집회는 교회에서나 부서에서 유능한 강사를 데려다가 하고, 대집회는 교단이 짜서 한다.

116. 각 교회와 각 부서의 집회는 유능한 말씀 강사와 전도 강사를 준비해서 하여라.

<2013년 3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자기를 다스리려면, 자기 생각을 다스려라.

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다.
3.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 가지고 있을 것이면 희망이 없다.
4. 오래 가지고 있을 것이면 그만큼 그 가치와 희망이 크고, 그만큼 기쁨도 크다.
5. 욕의 것은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변하고, 가지고 있는 기간도 너무 짧고, 희망도 짧다. 고로 허무하다. 자기 몸도 청춘도 욕의 것이어서 금방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가지고 있으니 영원한 희망이다.
6. 욕의 것은 가지고 있어도 금방 낡아지니 스스로 가치가 없어지고, 그 기쁨도 별로다. 이는 욕에 속해 있기에 생각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7. 욕에 속한 것들은 가지고 있어도 바로 퇴락하고, 늙고, 변질되고, 처음 상태가 변해 버리니 허무하다. 고로 자꾸 새로 짓고, 새로 만들고, 새것을 얻으려 한다. 그러다 자기가 변하고 늙으니, 세월 따라 간다.
8. 창조주는 인간이 영원한 것을 찾고 만들어 가도록 인간에게 ‘마음·정신·생각’을 주시고 ‘혼과 영’을 주셨다. 자기 욕을 가지고 마음·정신·생각을 다스려 자기 혼과 영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품에 안겨 살아야 된다.
9. 사람은 누구나 그 환경에 가면, 몸이 그 환경대로 살게 된다.
10. 직장 생활을 하면 몸이 직장 환경으로 살고, 농사를 지으면 몸이 농사꾼 환경으로 살고, 학교에 다니면 몸이 학교 환경으로 살게 된다.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된다.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
11. 신앙생활을 하면 몸도 마음도 신앙의 환경에 처하니, 몸도 생각도 신앙의 환경에 따라 살게 된다.
12. 하나님도 성자도 사람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 때는 ‘환경’을 그에 맞춰 옮겨서 일하게 하셨다.
13.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과 터전이 직장이라서 직장의 몸이 되어 산다.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삶의 환경과 터전이 학교라서 학교의 몸이 되어 산다. 그러니 마음먹기에, 생각하기에 달려 있다.
14. 하나님과 성자의 사람이 되려면, 욕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라.
15. 아브라함도, 야곱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에 맞게 환경을 옮기게 하셨다.
16. 욕도 마음도 같이 해야 하나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한다.
17. 고로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교회로 만들면 욕도 마음도 그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
18. 하나님 역사는 100%이다.
19. 하나님의 역사를 쉬게 하지 마라. (일례로 월명동을 다 만들어 놓고 사용하려 하지 말고,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면서 사용하고 만들라는 것이다.)
20. 다 만들고 영광 돌린다 하지 말고, 과정 중에도 계속 사용하며 영광 돌려라.

<2013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교육해라.” (중요 잠언)

1. 자기 혼과 영은 절대 존재하고 있으나, 안 보인다. 고로 보이는 자기 육신이 자기 혼과 영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혼

과 영이 존재하는 것을 모른다. 자기 육신이 자기 혼과 영을 반영하여 보여 줘야 영의 존재를 더욱 알고 믿고 사랑하며 같이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깨닫고 느끼고 사랑하며 대상이 되어 살면서 자기 육으로 반영시켜야 모두 알고 믿고 깨닫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2. 가정의 아버지가 있지만 직접 보일 수 없다면 ‘아들’을 보이며 아버지를 반영하며 나타낸다. 어머니가 있지만 직접 보일 수 없다면 ‘딸’을 보이며 어머니를 반영하며 나타낸다. / 하나님도 성자도 세상에 보낸 자를 보이며 그를 통해 반영하며 나타내면서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고,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성령님은 모성 신(母性神)이니, 성령님을 철저히 알고 조건을 세운 상징적인 자를 보이며 그를 통해 성령님을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며 반영해 줘야 된다.

3. 신은 영이라 육신으로 반영해 주지 않으면 나타나지 못하신다. 자기 혼과 영이 존재하고 있어도 보이는 육신이 반영해 주지 않으면 못 나타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이 반영해 주지 않으면 존재하고 있어도 못 나타나신다. / 항상 안 보이는 ‘본체’가 있으면 본체의 대상체, 곧 보이는 본체가 반영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존재하고 있어도 육신에게 나타나지 못한다. / 보이는 육신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낸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육신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일체 되어 깨닫고 느낄 때 우리 육신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나신다.

5. 우리의 ‘힘’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안 보인다. 그 힘은 자기 육을 통해서 나타난다.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힘이 있어도 못 나타난다. 자기 영도 혼도 그러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6. 지체의 각 구조도 자기가 생긴 대로 반응을 보여 주며 본체를 나타내야 된다. 가령 손의 뇌신경은 보이는 손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야 되고, 발의 뇌신경은 보이는 발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야 된다. 사랑의 마음과 생각, 곧 사랑의 신경은 사랑의 지체를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야 느끼고 알게 된다.

7. 이와 같이 가정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내고, 어머니는 그 구조와 형상이 닮은 대로 딸을 통해 반영하여 나타낸다. / 성부와 성자는 남성 신으로서 남자를 대상체로 삼고 나타내 보이고, 천모 성령님은 여성 신으로서 여자를 대상체로 삼고, 그를 본체로 삼고, 그를 통해 반영하여 나타낸다. 보이는 여자의 형상과 마음과 특성대로 성령님은 여자를 통해 자신을 반영하여 지상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천모의 존재를 나타내신다.

8. 사람 자체의 본체는 영과 혼이고, 본체는 육신이다. 본체인 영과 혼은 본체인 육을 통해 나타난다. 보이는 세상에서는 보이는 육신을 통해 나타난다.

9.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한 대상체인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10. 성령의 역사 때 성령님은 보이는 대상체, 곧 육신을 가진 여자 중에서 대상체를 뽑아서, 그를 통해 성령님 본체의 형상을 나타내며 역사하신다. 이는 엄마가 딸을 통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며 할 일을 하는 격이다.

11. 보이는 자는 영체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항상 본체의 대상체이며, 상징체이며, 본체다.

12. 구약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중심인물들을 상징체로 보이며 나타나셨듯이, 성자도 성령님도 지상의 보이는 대상체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13. 육으로 보이지 않는 신은 우리 영으로 영계에 가서는 볼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육이라서 영을 못 본다. / 고로 하나님도 성자도 눈으로 보이는 보낸 본체를 통해 반영하며 나타내고, 성령님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여자 중에서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대상체로 삼고 자신의 미와 성품을 나타내면서 역사하신다. / 가정의 엄마를 나타내려면 아들을 보이며 나타낼 수 없다. 아들은 엄마의 모양과 성품을 나타내지 못한다. 딸을 보이면서 나타낸다. / 신약 때는 아들 역사이지만, 성약은 신부 역사다. 고로 완전하게 성령을 나타내시며,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불타오른다. 조은 부흥강사

는 여자니까, 여자 중에서도 성자가 택하여 사명을 준 자이니까, 성령님과 성자께서 조은 부흥강사를 더욱 강하게 쓰고 역사하며 성령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14. 성령의 역사 때 성자는 ‘여자’를 통해서 성령의 모양과 형상과 성품을 강하게 반영하며 나타내 주셨다.

15. 하늘의 삼위일체는 반드시 개성대로 존재하신다. 그 대상체가 땅에 있으니, 삼위일체는 그 대상체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아멘.

16.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대상체다. 땅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에 대한 상징체, 곧 대상체가 있다. 고로 삼위는 보이는 대상체를 통해 반영하여 보이지 않는 존재를 나타내신다.

17. 가정에서 엄마의 상징체, 곧 대상체는 모든 딸들이다. 그러나 딸들 중에서도 핵심 대상체가 있다. / 온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성령의 상대체다. 성자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성령을 반영하는 핵심 대상체를 섭리사에서 세우고 성령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18. 하나님과 성자의 상징체는 땅의 모든 남자들이다. 그러나 핵심 대상체는 딱 한 사람, 성자 분체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핵심 대상체, 곧 핵심 상징체를 통해서 가장 핵적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신다.

20. 모르는 자들은 ‘성령’ 하면, 막연히 ‘하나님의 신이다.’ 한다. 마치 한 집안의 식구들을 쪼개지 않고 대강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격이다. 아들이 엄마 보고 우리 식구라고 하고, 아버지가 딸을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고, 형의 아내를 보고도 우리 식구라고 하는 격이다. 쪼개서 보면 아버지, 어머니, 누나, 언니, 동생, 형, 형수, 올케, 매형, 매제, 이모, 고모로 나뉜다. 이같이 분별하지 않는 가정은 없다. / 하늘의 성부는 아버지 격으로 하나님이며, 성자는 아들 격으로 구세주이시며, 성령님은 어머니 격으로 모성 신(母性 神)이다.

21. 알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22. 구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성자가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모른다.

23. 성자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성령을 하나님의 신으로만 알고 믿고 산다.

24. ‘성부’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자다. 성자도 그러하시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성부와 성자는 남성 신이고, 성령님은 여성 신이다. 성령님은 발끝에서 머리까지 여자다. 천주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 존재자다. 역시 삼위일체로서 창조자다.

25. 구종교인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르니, 성경의 마리아가 하늘의 성령이나 되는 듯 가르친다. 또 나사렛 예수님을 성자 본체로 알고 가르친다. / 신약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땅에서 성령 본체의 상징적 대상 역할을 했다. 또한 나사렛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성자 본체의 상징적 대상 역할을 했다. 그러나 본체가 아니다.

26. 알고 믿고 받아들여야 성령이 더욱 확실히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때, 제대로 아는 대로 고백하며 시인하면,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으니까 받고서도 금방 식는다. 먼저 ‘말씀’으로 철강같이 교리와 지식을 세워서 지식의 하나님을 알고, 그 터전 위에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 고백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성령 엄마가 “너는 나 확실히 아는구나.” 하고, 덮어씌우듯, 쏟아 붓듯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신다.

27. 성령님도 성자도 보이는 대상체, 곧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시어 육적 실상의 주체가 되어 행하신다. 성자의 대상체는 주체인 성자 본체같이 신랑 역할을 하고, 성령의 대상체는 주체인 성령님 본체같이 엄마 역할을 한다. 고로 엄마같이 기르는 역할을 한다. 성령님이 보이는 자, 그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의 육체를 쓰고 엄마 역할을 하신다. 알고 믿고 알고 살아라. 늙을 때까지도 모르고 살다 죽으려느냐.

28. 성령의 역사를 하는 자는 성령님을 증거하며 반영하는 것이 책임이고, 성령을 받는 자들은 이에 대해 온전히 믿어 주고 증거해 주며 반응해 주는 것이 책임이다.

<2013년 3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하나님은 개인에게 왕이다.
2.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며 데리고 살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주관하고 지배하고 돕고 함께하며 다스리시는 개인의 왕이시다.
3. 세상 왕은 자기 좁은 주관권 안에서만 백성들을 다스리고 끝난다. 그 능력으로는 전체를 만나고 이야기하며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한다. 그저 하나의 표상일 뿐이다.
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온 인류의 각 개인에게 왕이다. 구원의 주 성자다.
5.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여 매일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듯, 온 세상 각 개인을 그같이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삼위일체다.
6. 성자는 개인에게 왕이요, 사랑의 신랑이시다.
7. ‘개인에게 왕’이란 말은 개인 한 명을 놓고 매일 매시간 쳐다보고 다스린다는 것이다.
8. 세상 70억 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개인 한 명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하여라. 자기 개인 한 명에게 세 분의 왕이 있다.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삼위를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의 통솔을 받으면서 행하여라.
9.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기다.
10.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기다.
11.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기다.
12. 개인 한 사람을 보고 삼위일체의 세 왕이 통치하신다. 거기에다 보이는 땅의 구원자가 같이 왕이 되어 개인 한 사람을 다스린다. 고로 네 왕이 돕고 함께한다.
13. 세상의 왕은 온 백성들을 보고 통치하지만, 삼위일체의 세 왕은 개인 한 사람을 보고 자세히 통치한다.
14. 개인 한 명을 보고 세 왕이 통치하시니, 얼마나 세밀히 통치하시겠느냐.
15. (주일말씀에 나온 도표 : 삼위가 땅의 구원자와 함께 한 개인을 살피는 도표 보여 주면서 / 씨티엔에서 자료 낱장으로 준비해 주기.)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두 왕이 한 자녀를 다스리고 돕고 사랑하며 통치한다.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부 왕, 성자 왕, 성령 왕이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관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16. 한 나라, 한 백성이다.
17. 백성은 한 명, 왕은 세 명이다. ‘백성’은 자기 한 명이고, ‘왕’은 하나님 왕, 성령님 여왕, 성자 사랑의 신랑 왕이다.

18. 세 왕을 모시고 사랑하여라. 진실하여라. 간절하여라.

19. 골프공도 축구공도 탁구공도 야구공도 여러 번 하다가 공이 맞아 들어가듯이, 진리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깨닫는다.

20. 전능하신 하나님 왕, 성령 여왕, 성자 구세주 왕이 한 사람을 놓고서 '구원'을 목적으로 '천국'에 가도록 다스린다. 그래도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그리도 많다. 왜일까? 인간이 안 하기 때문이다. 삼위는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선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다.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삼위가 천국이라도 무조건 끌고 가면 그것은 '무력'이 된다.

21. 인간이 선하게 의롭게 살기가 그리도 어렵다는 것이다.

22. 4인방이요, 5인방이다.

23. 삼위일체와 자기 자신은 4인방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땅의 구원자와 자기 자신은 5인방이다. 이렇게 5인방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다스린다. 그래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다. '자기 자신'이 너무 크고 중하다. 자기 취사선택이다.

24.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네 왕이 다스린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자가 보낸 땅의 구원자다.

25. 절대 신이신 성부 - 성자 - 성령과, 땅의 왕과, 구원받을 자, 이 5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도 창조하셨다. 바로 흥한 애벌레와 벌레들이다. 새들이 먹고 노래하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것도 다른 것과 연관해서 볼 때는 상관이 있다.

3. 자기에겐 직접적으로 별 유익이 없는 자라도 연관해서 볼 때는 필요한 존재다.

4. 자기는 자기 가족과 친구들과 애인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연관되어 자기를 돕고 자기에겐 유익을 준다. 만일 그들이 없으면, 자기 가족도 친구도 애인도 힘들어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었을 것이다.

5. '상호 존재'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말아라. 하나의 발을 건너면 상대의 논이다. 그 집과 서로 연결된 논이다.

6. 자기 애인만 필요하다고 하지 말아라. 애인이 크는 집의 부모도 애인의 뿌리가 박힌 땅이다.

7. 세상 사람들은 모두 연결되어 산다.

8. 나무만 좋다고 뽑아 오면 살리기 힘들다. 뿌리가 붙은 흙까지 가져와야 살릴 수 있다.

9. '연관'이다. '상호 존재'다.

10. 하나님은 생명의 존재들은 너무나 차이 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는 같은 직계의 종자끼리는 잡아먹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11. 사람 - 동물 - 식물이다. 사람과 동물은 차이가 나고, 같은 동물이라도 차원이 높은 동물과 차원이 낮은 동물로 차이가 난다. 그다음은 식물로서 동물과 식물은 차이가 난다.

12. 만일 세상에 사람만 창조했다면, 사람이 사람을 음식으로 삼을 것이다. 고로 그 밑에 동물들과 식물들을 창조해 놓으셨다.
13. 애벌레와 곤충을 창조하심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들이 새들을 다 잡아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14. <창조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은 차원대로 창조하여 위의 차원에 있는 것이 밑의 차원에 있는 것을 밥으로 삼고 생활환경으로 삼고 살게 하셨다.
15. '약육강식'이 아니다. 이는 '존재 법칙'으로서 '순리'다.
16.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총(總)영장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만물의 총영장이라고 해서 창조자의 법을 벗어나 만물을 다루고 다스리면, 인간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17. 인간은 밑의 차원에 있는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해야 된다.
18. 자기와 썩는 퇴비와는 상관이 없다. 그래도 내가 먹을 과일나무와는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
19. 과일나무를 보고 "퇴비는 썩고 냄새가 나서 나는 싫어. 그러니 과일나무 너도 퇴비를 멀리해." 하면, 과일나무는 고민한다. 그러다 결국 과일나무는 굼어서 작은 과일이 열린다.
20. 친구도 먹이고, 친구에게 달린 자도 친구가 먹이게 두어라.
21. 물고기만 사랑하지 말고, 물도 사랑해 주어라. 그러면 고기가 맛있다. 아름답다. 건강하다.
22. 연관된 역사다.
23. 안 보인다고 밑돌 빼지 말아라.
24. 산의 호랑이를 잡아 주는 자보다 자기 눈의 티를 빼 주는 자가 더 유익을 주는 자다.
25. 해를 끼치는 것도 그러하다. 직접 못 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해를 준다.
26. 산의 호랑이를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으니, 호랑이가 먹는 토끼와 돼지를 다 잡아먹는다.
27. 왕을 해하지 못하니 백성을 해하여, 백성이 왕을 보채게 하고 백성이 왕의 짐이 되게 한다. 백성의 수가 적으니 더하다.
28. 사탄과 악인들의 수작이다.
29.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꾀어 하나님께 해를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불러 저주하시고 행위대로 대해 주셨다. 고로 악을 쪼개 내셨다.
30. 모두 강자를 손대지 못하니, 강자와 연관된 자들을 손댄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31. 직접적인 침범이 아니고 연관된 침범이라도 이는 사탄의 행위요, 행악자의 술법이다. 그들은 덮에 걸려 있고, 투망에 걸려 있고, 덮 속에 갇혀 있다. 결국 행위대로 받는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32. <마음>은 ‘생각의 세계’이지만, <혼과 영>은 ‘실상의 세계’다.

33. 육과 혼과 영은 실제로 행동하는 세계다.

34. 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귀와 일체 되어라. 항상 눈도 입도 귀도 이리저리 확인하고 대하여라.

35. 적(敵)은 자기와 연관된 자와 통한다.

36. 적은 계단을 밟고 올라온다.

37. 적은 앞산에 못 오니 뒷산에서 앞산으로 신호한다.

38. 사탄은 간교하고 악질적이라서 직접 하면 알아채니까 사람을 통해서 모르게 온다.

<2013년 3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육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지만, 영의 세계는 혼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본다.

2. 만일 눈을 감았는데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혼과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뇌에 암기된 것과 녹화된 것이 생각나서 육에 속한 작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3.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평소에 보았던 것이 기억나면서 그것이 뇌의 작용으로 인해 집중되어 보인다. 이는 암기한 것이 생각나듯 하는 것이다.

4. 생각한 것이나 본 것이 기억나서 뇌의 작용으로 보이는 것이지, 혼과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단계가 아니다. 이것을 흔히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5. 혼과 영의 눈으로 보는 단계는 육을 벗어나서 영의 단계에 가서 정확히 본다. 마치 잠을 잘 때 꿈에서 어떤 것을 보다가 잠에서 깨면, 육의 눈이 육의 세계의 만물을 다 보듯이, 혼과 영도 그 눈으로 영의 세계의 것을 다 본다.

6. 전에 얼굴을 본 사람이 평소에는 기억이 안 나다가 새벽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 얼굴이 아련히 생각나다가 기억이 떠오른다. 이것이 전에 봤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다.

7. 낮에나 언제든지 무엇을 볼 때 확실히 보지 않은 것은 뇌에 녹화가 제대로 안 되어 기억이 떠올라도 확실히 생각나지 않는다.

8. 면회 때 조은 목사와 네 명을 만났다. 그때 17분 동안 말씀만 집중적으로 전했다. 면회가 끝났는데, 조은 목사가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다. 방금 보고 나왔는데도 그랬다. 옷 색깔을 기억하려고 아예 메모하고 보고 왔으면 기억났을 것이다. 성자께 물기를 “제 뇌가 늙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까?” 하니, 성자 주님은 “영적 차원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전했다기 때문이다.” 하셨다.

9. 생각을 안 하고 보면, 사람을 봐도 후에는 기억이 안 나는 것과 같다. 어떤 말도 생각을 안 하고 들으면, 뇌에 기억이 안 되고 다시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다.

10. 성자 주님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주님은 옆에 계신다. 지구에 계신다. 항상 24시간 나를 관찰하신다. 옆에 있다.’ 생각해야지, 그냥 다른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옆에 계셔도 육은 못 느낀다.

11. 먼저 생각하고 보아라.

12. 생각하면서 말해라.

13. 먼저 육이 생각하고 혼체가 영계에 들어가서 육이 생각한 것을 봐야, 혼체가 본 것을 자기 육에게 전달했을 때 선명하게 떠오르며 생각한다.

14. ‘생각’은 망원경의 구멍과 같다. 망원경은 구멍으로 봐야 보인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봐야 보인다.

15. ‘생각 집중’이다. 생각하고 봐야 자세히 보인다.

16. 자기가 집중한 것만 보인다.

17. 과거에 수백 번을 봤어도 생각 안 하고 본 것이 기억나는지 보아라.

18. 자세히 본 것인데 기억나지 않는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19. 과거에 행한 것을 잊어버렸기에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도 많다.

20. 특이한 것만 기억나지, 수천 가지가 다 기억나지는 않는다. 만일 비디오로 녹화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 기억날 것이다.

21. 죄를 지으면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여라. 때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정한 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때 ‘천국이나, 지옥이나.’ 하는데 “저는 죄를 안 지었어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천사가 자기 뇌에 녹화해 놓은 것을 보여 준다.

22.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놀고 왔어도 그 산에 간 것만 기억나지, 거기서 수십 가지 무엇을 했는지 일일이 다 기억나지 않는다.

23.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사람의 뇌의 특징은 이러하다. 육의 뇌에 영감이 스칠 때는 생각난 것이 10초 있다가 바로 사라지고, 혹은 1분 있다가 흔적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그런데 자기가 한 달, 두 달, 1년, 3년, 10년, 20년 전에 겪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말과 행동이 다 기억나겠느냐. 특정한 것만 기억난다.

24. 그 날에 한 일도 다른 일에 묻혀서 기억이 안 난다.

25.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무수하게 의를 많이 행했어도 기억이 안 난다. 고로 자기 영을 보면 “왜 이렇게 빛나지? 나는 별로 행한 것도 없는데...” 한다. 5년, 10년, 30년 동안 행한 것이 매일 조금씩 저금되듯 하여 영이 빛나게 변화된 것이다.

26. 선생이 매일 조금씩 쓴 잠언이 벌써 4만 잠언이 되었다.

27.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1년이면 엄청나다.

28. 조금씩이라도 전도하지 않은 자는 표가 나게 공적이 없어서 부끄러운 영계에 간다. 지금 자기가 생명을 구원한 것을 보고 영계를 확인해 보아라. 기본으로 열 명 이상을 구원해야 겨우 생명 구원을 했다고 한다. 영계에 가면 생명 구원에 표가 나는 자는 30명, 100명, 300명을 전도했고, 영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자들은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했다. 100명, 1000명, 10000명 구원하겠다고 하며 해야 된다.

29. 일생 동안, 몇 년씩 교회를 다녀도 몇 명도 전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자기 생명이 귀한 줄 알겠느냐. 말씀을 제대로 확실히 알고 행하면, 그렇게도 자기 육과 영을 구원하고 싶고, 그렇게도 생명들을 구원하고 싶다. 교역자들 중에서도 한두 명을 전도하고 마는 부끄러운 자들이 많다.

30. 전도하지 않는 자는 물질 축복, 영 축복을 줘도 못 받는다.

<2013년 3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31. 옥에 갇히고서도 수만 통씩 편지하여 밖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는데, 밖에서 사는 자들이 마음먹으면 전도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32. 선생은 몸이 못 나가니 편지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곳에 누가 지나가니 가서 전도해라.” 해서 생명이 전도된다. 이같이 전도한 자들이 1년 동안 너무 많다.

33. 올해는 ‘말씀의 해’이면서 ‘전도의 해’다. 전도하려면 하나님과 성자의 시대 말씀을 전해 줘야 된다.

34.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전도’다. 그리고 영원히 크고도 큰 공적도 ‘전도’다.

35.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오늘 죽는 길로 간다 생각하고 쫓아가서 설득시키고 죽는 길에서 끌고 나오듯 전도해야 된다.

36. 전도 안 했으면 자기도 영원히 사망으로 가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 자들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그 생명의 값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37. 막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성자가 택한 자를 데려와라. 전도를 막 하면 전도해도 뜻이 아니니까 나간다.

38. 시장에서 채소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골라서 사듯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골라서 전도해라.

39. 말씀으로 전도할 자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전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책 여덟 권을 사 놓고 보고 있었다. 선생이 그들의 말이 옳은지, 내 말이 옳은지 보라고 며칠 동안 한 시간씩 말씀을 전해줬다. / 결국 한 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최고라고 하는 자들의 설교집, 강연집, 교리집, 성경을 해석한 글들과 선생을 악평한 글을 다 버리고 “이 사람들 큰일 났네.” 하며 걱정했다. 그때 선생은 성경의 핵심 몇 개만 더 전해 주고, 더 크고 나서 배우라고 하며 더 안 가르쳐 주었다. / 그 후에 성경을 보니까 자기가 그 유명한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알겠다고 하며 큰소리치며 기뻐했다. 성경의 바른 눈을 뜨니까 어린 자라도 자기가 기성의 목사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 구시대 성경 해석이 어떻게 본체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따라오겠느냐.

40. 걷는 자가 말을 탄 자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낙원 세계에 있는 만 명의 교리를 묶어 놔도 천국 세계에 있는 한 사람이 아는 교리만큼도 모른다.

41. 장난감 차 1000개가 있어도 그것을 실제 자동차처럼 타고서 시속 150km로 도로를 달리겠느냐.

42. 산은 물이 아니다.

43. 유대 종교인들의 교리와 기성인들의 교리를 다 합쳐도 새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앞서지 못한다.

44. <구역사>는 사람의 뒷모습과 같고, <새 역사>는 사람의 앞모습과 같다. <구역사>는 뒤통수와 같고, <새 역사>는 얼굴과 같다. 그러니 비교가 되겠느냐.

45. <구역사>는 시계 등판이고, <새 역사>는 시계 앞판이다. 고로 시계 등판을 보고 어떻게 시간을 아느냐. 이와 같이 구시대인들은 시대와 때를 모른다.

46. <구역사>는 이미 끝난 어제 역사이고, <새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 오늘 역사다. 오늘을 못 찾으면 할 일 없고 희

망이 없다.

47. <구역사>는 끝난 잔칫집 마당과 같고, <새 역사>는 새 잔칫집으로 가는 격이다.

48. <구역사>는 애인과 이별하는 날이고, <새 역사>는 새 애인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 얼마나 기쁘냐. 비교하여 알아라.

49. <구역사>는 폐차시키러 고물차를 끌고 가는 날이고, <새 역사>는 새로 계약한 좋은 차를 가지러 가는 날이다. 비교가 되겠느냐.

50. <구역사>는 옛 차와 같고, <새 역사>는 새 고급 세단과 같다. ‘진리’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고, ‘구원’도 그러하다.

51. 이를 알고, 새 역사 새 말씀을 담대히 자신 있게 증거하여라!

52. “옛날 모세 때같이 모세를 믿고 살려느냐?” 하면, 누가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하겠느냐. 섭리사에서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 구시대 신앙인들보다 앞서서 각자 개성의 왕을 살아 먹는다.

53. 하나님의 역사는 구시대를 벗어나려고 2012년이나 몸부림을 쳤다. 오기만 하면 되는데, 구시대인들은 그래도 안 왔다. 이제 구시대는 깊은 계곡으로 들어간다.

54.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 그는 기성인이었다. 그리고 내게 “이상한 종교를 만들었네.” 했다. 그래서 나는 “본인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그 생각을 바로 하세요.” 했다. 기성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억울하게 한 세월이 지금까지 수십 년이다. / 그리고 나서 영계를 보니, 여자의 지체인 과일에서 마치 삶은 국수가 나오듯이 긴 벌레가 계속 쏟아져 나왔다. / 성자에게 물으니 “그 사람의 꼴이 그렇다. 그 더러운 생각으로 그 입에서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오는 실상을 보여 준 것이다. 뇌가 과일이 아니냐. 그의 실체가 그러하다. 나를 믿고 살아도 저 꼴이다.” 하셨다.

55. 구시대는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항문 역사’다. 시기, 질투, 악평, 무지, 다툼, 미움이 뒤덮어 그렇게도 새 역사를 핼박하고 무시하고 이단시켰다. 마치 예수님 때 유대 종교인들처럼 지금도 역사의 동시성으로 기성인들은 새 시대 섭리역사 앞에 똑같이 행했다.

56. 이 시대도 찌꺼기 인생들, 오물장 쓰레기 인생들이 많다. 전도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 그런 자들은 전도하면 안 된다.

57. 성자 주님은 “단물과 쓴물을 섞지 말아라.” 하셨다.

58. 오물은 쓰레기차에 실어다 버려야 된다.

<2013년 3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신령’에 대한 잠언

1. 생각하는 것이 일이다.

2. 육의 세계에서는 ‘육’으로 일하지만, 정신세계에서는 ‘생각’으로 일한다.

3. <생각의 본체>는 육적으로는 육체이고, 영적으로는 혼체다. <육체와 혼체의 본체>는 영체다.

4. 생각으로 일을 하면 많이 한다. 육체로 하면 얼마 못 한다.

5. 가령 ‘육체’로 1분간 길을 걷는 일을 한다 하자. 몇백 미터밖에 못 간다. 그러나 ‘생각’으로 가면, 지구 끝까지도 간

다.

6. '생각'으로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게 된다.

7.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일이 되게 하느냐?” 한다. <생각의 본체>는 '혼체'다.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영의 세계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

8.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영의 세계를 다니면서 혼체가 영의 일을 배우고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9. 혼체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안 것을 육체가 행하면, 육체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이상적으로 행한다.

10. 어떤 일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 일을 한다는 것이다.

11. 생각을 육적으로 하면 육적 차원에서 행하게 되고, 생각을 영적으로 하면 혼적, 영적 단계로 차원 높게 행하게 된다.

12. 선생은 지금 생각한 것을 육신의 손으로 써서 옮기고 있다. 육적 세계에 관한 것도 있고, 영적 세계에 관한 것도 있다.

13. 자기 생각이 자기 혼체를 쓰고서 자기 혼체를 데리고 일을 한다. 그것은 혼체의 일이 되지만, 육체에 해당되는 일이 되기도 한다.

14. 육신이 잠잘 때는 성자의 뜻이 있으면 자기 혼체가 성자의 계시를 받는다. 육신이 받을 것이 따로 있다. 혼체가 계시받고 일할 것은 혼체가 한다. 혼체가 계시를 받고서 즉시 상대체인 육체에게 전해 주면, 육체가 낮에 이를 행함으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15. 생각은 곧 마음, 정신이라고 한다. 낮에는 생각이 자기 육신을 쓰고 자기 혼체와 같이 일한다. 육신이 잠을 잘 때는 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혼계에서 일하고 사람도 만나 본다.

16. 생각이 신령하고 마음과 정신이 신령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절대자 성자와 분체와 영적인 자들과 일체 돼야 한다. 그러면 육도 혼도 신령하게 차원 높여 행하게 된다.

17. 성자 주님이 계시하실 때, '신령한 것'은 우리 육신이 잠잘 때 혼체나 영체에게 계시하신다. '육신 세계의 것'은 낮에 마음과 혼체가 자기 육체를 쓰고 행할 때,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하면서 계시하신다.

18. 영체에게 계시하실 것은 영계에서 영체에게 계시하신다.

19. 낮에 육신이 잠을 안 잘 때도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신령해져서 혼체를 쓰고서 환상도 보게 되고 영계의 것들도 보게 된다.

20. 신령한 자는 낮에도 자기 육과 함께 신령한 단계에서 행한다.

21. 신령한 말, 신령한 행실이다.

22. 자체 신령이 있고, 성자에게 해당되는 신령이 있다.

23. 성자의 생각에 도달하여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하는 것이 신령한 차원에서 차원 높게 행하는 것이다.

24. 가령 자기가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결혼해서 아기를 많이 낳고 아기만 기르며 살 거야.” 했다 하자. 그러나 주의 뜻은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사는 것이라고 하자.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자가 주의 뜻을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고 주님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도 신령한 생각을 한 것이요,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25. ‘신령한 말씀’이란, 성자가 그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다. 그때마다 성자가 원하시는 말이다. 이 말을 전해 주는 자가 신령한 자다. 그 말을 듣는 자도 신령한 자가 된다. ‘신령한 자’란, 영적인 자를 말한다.
26. 새벽이 가장 신령한 시간이다. 신령하도록 새벽에 기도하여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진실로 간절히 사모하며 성자와의 사랑에 불이 붙어서 해야 된다.
27. 과학적으로 봐도 새벽은 가장 총명한 시간이다. 사람이 온종일 각종 것들을 보고 듣고 접하여 뇌가 복잡한데, 잠을 자면서 뇌를 쉬게 해 주고 일어나면 생각이 보다 총명하다. 이때 기도하면 누구나 표가 나게 신령하게 생각하게 된다.
28. 신령한 잠언과 말씀은 새벽에 다 받고 깨닫고 쓴다. 나머지는 낮에 생활하면서 쓴다.
29. 새벽기도가 가장 신령한 기도다. 신령한 자는 낮에도 그 단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그러나 새벽이 가장 신령한 시간이다.
30. ‘신령’은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온전히 성자와 일체 되어 성자에게 향할 때 일어난다.
31.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하나의 명상에 빠지면, 육적인 정신세계만 총명해질 뿐이다. 우상 종교인들도 자기 차원대로 영계를 보고 깨닫는데, 그 단계에서 깨닫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권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다.
32. 미친 자도, 우상 숭배자도, 명상하는 자도 ‘자기 생각과 정신의 차원대로’ 영계도 보고, 혼계도 보고, 지옥도 본다. 하지만 삼위의 주관권을 벗어난 존재다.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33.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속한 영계이며 육계여야 된다.
34. 성자와 일체 되면 일순간 신령해진다.
35. 성자를 벗어나고 분체를 벗어난 것이 ‘죽음’이다. 영적으로 보면 사망권이다. 그 육신도 혼도 영도 사망권에서 산다. 다시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면, 다시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36.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자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행실이 체질화돼서 성자의 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성자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그 습관과 버릇이 없어지고 그 체질이 고쳐진다.
37. 남이 아닌 ‘자기’가 전능자와 구세주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안 믿는 것이다. 자기 마음이 막으면 안 된다.
38. 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개인의 마음과 생각을 보고 심판하신다.
39. 성자의 일을 하며 섭리사의 행정을 보는 자들도, 강의하는 자들도, CTN에서 일하는 자들도, 월명동에서 성지 사역을 하는 자들도, 월명동에서 호떡을 구워 주는 자들도, 아트샵에서 일하는 자들도, 말씀을 그림으로 그리는 자들도, 전도하고 관리하는 자들도 모두 신령한 자다. 단, 일을 할 때 성자와 분체와 그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되어 행해야 신령한 자가 된다.
- ‘신령한 것’은 환상, 방언, 성령의 불만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극치로 사랑하며, 시대 보낸 자를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신령한 자들이요, 신령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40. 신령한 자는 절대 진리 중심, 절대 성자 중심, 절대 성자 분체 중심하고, 절대 분체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된 자다.
41. 신령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뜨겁게 전해 주는 자들도 신령한 자들이다.
42. 자기 영이 성자에게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실천할 때, 신령한 행위가 된다.
43. 재림 때는 가장 신령한 때다. 고로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이 나가고, 가장 높은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 재림 시대는 신부로 만드는 시대다.
4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그 자체가 '신령'이다. 사람이 신령하여 삼위를 차원 높이 대하는 대로 삼위를 느끼고, 삼위의 역사와 능력과 지혜를 받아 행하게 된다.
45. 정신세계, 생각 세계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화면처럼 돌아간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골라야 된다.
46. 새벽에도 기도하면 각종 것들이 스쳐 간다. 그러나 하루 새벽에는 한 가지에 관한 잠언밖에 못 쓰니, 머리에 스쳐가는 각종 것들 중에서 제일 생각이 가고 떠오르는 것을 성자와 함께 골라서 쓴다. 오늘은 '신령한 세계의 것'을 골라서 썼다.
47.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영음이 마음으로 깨달아져 들리기도 하고 영의 것이 눈으로 보이기도 한다. 육의 것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2013년 3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 하루를 배우면 평생 써먹을 것을 배우지만, 안 배우면 평생 모르고 산다.

1. (주 편) 운전도 더 잘하는 자에게 맡기듯, 섭리의 모든 사명들도 더 잘하는 자에게 맡겨라.
2. (주 편) 더 잘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이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3. 본인이 배워서 하는 것보다 이미 배워서 더 잘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맡겨라. 그러면 즉시 차원이 높아진다.
4.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되어서 더 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같이 어렵다. 그러니 옆에서 더 잘하고 있는 자를 시켜라.
5. 배워도 그 사람의 생각 차원이 있다.
6. 지도자들은 옆에서 잘하는 사람의 것을 수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개 항상 자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구시대가 되고 퇴락한 집이 되는 것이다.
7.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대개 자기 식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로 기성으로 남아져 옛것이 된다.
8. 종교도 시대가 바뀌어도 처음에 했던 것을 그대로 쥐고 살고 있으니, 옛것이 되고 만다.
9. 옛것은 새것을 따라 할 수가 없다.
10. 개인도, 교회도, 각 부서와 기관도 지도자들은 옆 사람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을 수렴해야 된다.

11. 나이가 먹으면 감도가 떨어진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감도가 떨어진다. 그러니 옆에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 안 물어보고 자기 식으로만 하는 지도자는 하늘 법이 있으니 꼭 교체한다.

12. 자기 밑에, 자기 옆에, 자기 뒤에, 자기 앞에 더 잘하는 자가 있는데도 죽어도 그 말과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중심, 권위, 직위, 위치, 위신, 교만이 그 생각에 꼭 차서 전능자 성자도, 주권자 분체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한다.

13. 잠언을 하나의 잠언으로만 읽지 말아라. 이는 전능자가 선포한 섭리의 법이다. 고로 법을 선포하면, 그날부터 분체가 법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알아라.

14. 올림픽경기 때도 나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는 자, 일점일획이라도 더 잘하는 자를 내보낸다. 잘 안다고 못 하는 자를 내보내면 경기에서 1등 할 것 2등 하고 3등 하여 그 나라까지 그같이 된다.

15. 그 나라의 대표가 지면 그 나라가 다 진 것이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16. 마지막 제2차원, 제3차원에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게 하겠다. 둘째, 지도자가 마음을 비우고 전체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것을 수렴하기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면서 하겠다.

17. 글씨도 여러 번 써 본 것 중에서 제일 잘 쓴 글씨를 고른다. 사람도 글씨와 같아서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자를 고른다.

18.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점과 병폐가 있다. 각 교회와 각 부서와 각 기관에는 눈, 코, 귀, 입, 손, 다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 개성대로 있다. 지도자도 그중의 한 지체다. 그런데 지도자 혼자 눈도 하고, 코도 하고, 귀도 하고, 입도 하고, 손도 하고, 다리도 하고, 머리 역할까지 한다. 이것이 지도자의 병폐다. ‘머리’는 오직 성자와 분체다. 지도자는 한 지체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그중에서 최고로 잘하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고, 전체가 따르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된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못하는 사람이 3년 동안 한 것을 1년 만에 했다.

19. 교역자도 설교만 잘하면 안 된다. 열두 가지 정도 꼭 할 일이 있다. 그러나 대개 이것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혼자만 뛰려 한다. 교회에는 100명, 200명, 300명이 있다. 머리를 써서 전체를 써야 된다. 교역자는 왕이 아니다. 섭리사의 하나의 지체다.

20. 밑의 사람들이 다 함께 뛰어야 된다.

21.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부흥이 안 된다.

22. 각 부서와 각 기관들이 모여서 좋고 합당한 의견을 내놓으면, 즉시 지도자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또 자기 식으로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손자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좋은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뭘 아냐?” 하면, 가다가 함정에 빠진다.

23. 선생이 클 때 형들은 항상 “네가 뭘 아냐?” 했다. 사실 난 알았다. 형들이 알고 간 길은 보통 인생길로 끝났다. 나는 1000년 동안 가는 새 시대 새 길을 찾아왔고, 그들은 이미 2000년 동안 온 옛길에서 끝났다.

24. 보고해도 할머니, 할아버지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된다. 곧 자기 주관, 자기중심 보고다. 이는 구시대 보고다. 새 시대에 온 자들아. 꼭 양쪽 상황을 보고 핵심을 넣어서 보고해라.

25. 각 교회, 각 부서, 각 기관, 교단의 지도자들은 선생에게 보고할 때,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

여와 좋은 방법을 보고해 주어라. 지도자들이 자기 입장에서 본 것만 보고하면, 그것만 가지고서는 일이 이상적으로 안 된다.

26. 군대에서 작전할 때 지휘하는 지도자가 보고 느끼는 것과 직접 총을 들고 적과 맞대고 싸우는 병사가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고로 지도자가 전쟁터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지휘하면 자기 병사들을 죽인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된다.

27. (주 편) 분체야, 네가 해라. 나 성자가 분체인 너와는 통하는데, 지체인 지도자들과는 잘 안 통한다.

28. (주 편) 올해는 성약 독립의 해다. 이제 각 기관의 오래된 자들을 교체할 곳은 새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자.

29. (주 편) 우주선을 만들 때 여러 회사에서 기술자들이 각종 부속품을 만들면, 조립은 최고의 기술자가 한다. 이와 같이 각 교회와 부서와 기관도 각 분야의 기술자들이 할 일을 해 놓으면, 최고의 기술자가 잘 조립하여 전체를 완성해야 된다. 개성으로 뛰고 나는 자들을 다 써야 된다.

30. (주 편) 자기 밑의 사람이 자기 생각과 기술보다 더 나아서 더 좋은 것을 건의하고 이야기하면, 지도자는 안 받아 주거나 대답을 해 놓고서도 계획적으로 안 한다. 자기 섭리가 아니다. 섭리사는 나 성자의 것이다. 고로 더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식으로 하는 지도자는 꼭 교체하여 새롭게 하여라.

31. 국가에서 정치하는 자들도 자기 식으로만 하면 발전이 없다.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아는 것이 많으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하기다.

32. 한 나라의 운명도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했지만, 결국 한 사람이 해결하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혜로 하늘의 방법으로 하늘과 행하여 해결했다.

33.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길이 있는데 녹슬게 하려느냐. 결국 가다 보면, 모두가 무엇이 더 좋은지 알게 된다.

34. 섭리사 전체에 해당되는 일들은 한 번 해 놓으면 미래까지 후대까지 다 보게 된다. 고로 최고로 정말 잘해야 된다.

35. 지도자는 자꾸 밑에,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자에게 진정 진실로 물어보고, 그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 주면 본인이 못 하는 것은 그들을 시켜서 하게 하여 전체가 빛나게 하여라.

36. 선생은 한없이 받아들인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컸다. 하늘 뜻이 아닌 것은 제거했다. 그렇게 하다가 성자가 가르쳐 주시어 성자에게 배우는 자가 되었다.

37. 잠언을 하나의 잠언으로만 보고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각 기관의 지도자들은 즉시 말씀대로 행하여라.

38. 성자는 보낸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 안 하면 고장 나서 안 된다고 하시며 즉시 고치러 보내시고, 그 자리에는 고친 자를 보내신다.

39. (주 편) “성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시 교정하고 섭리 전체를 보면서 행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속이 100% 시원하게 하여라.

40. 말했는데도 고치지 않으면, 육도 고장 난 지체가 된 것이다.

41. ‘조금 더’ 할 때 뛰어나게 빛이 난다고 말했어도 지도자들이 전체에서 뛰어난 기술들을 수렴하지 않는다. 깨우쳐 주며 심령에 성자의 말을 전해 줘도 안 한다. 자기가 왕이 되면 안 된다. 왕은 하나다.

42. 모두 자기 흠을 고쳐라. 안 고치면 육도 영도 흠 있는 곳으로 쪼개져 갈려 가게 된다.

<2013년 3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주 편) 받아들이기다! 사람을 보고서 안 받아들이느냐? 그가 나 성자다. 나를 받아 주지 않는구나. 섭리사 개인 한 명, 한 명이 나 성자요, 내 분체이니 지도자들은 그들을 위하고 섬겨 주고 존경하며 그들과 교통하면서 행하여라.

2. (주 편) 나 성자가 쓰려고 전도해서 데려오고, 분체와 함께 이미 가르친 자들이다. 왜 옆에 있는데도 묻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안 쓰는 것이냐. 나 성자가 그 전문적인 생각과 머리를 통해서 쓴다. 항상 먼저 깨닫는 전문가의 머리를 통해서 각자 개성대로 쓴다.

3. 어느 때는 어린아이가 합당하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쓴다. 계시도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쓰고 주고, 섭리사 일도 그렇게 한다. 고로 전체를 꿰뚫어 보고 찾아라.

4. 성경에서도 현실에서도 보면, 백성 가운데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자가 있는데도 그를 못 찾고 자기 식대로 하다가 망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말없이 그 사람을 쓰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5. 온 산을 다 찾으면 자기가 원하는 나무가 있는데도 자기 주관권에서만 찾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니 이상적이지 못하다.

6. 어떤 신입생은 오래된 자보다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신앙만 신입생이지, 인생은 신입생이 아니다.

7. 성자는 더 나은 자에게 역사하신다.

8. 제자 중에 선생이 시킨 일을 안 해서 그로 인해 비가 왔을 때 앞산 야심작이 무너졌다. 그 후에 선생이 약수 샘 작업을 하는데, 그 제자가 “여기보다 저기가 더 좋지 않아요?” 했다. 그래도 선생은 그 말을 듣고 산 쪽으로 샘을 옮겨서 작업했다. 원래 선생은 약수 샘을 잔디밭 하단 한가운데에 만들어서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했다. 그 자리가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중앙이기 때문이었다. 산 쪽에다 해 볼까 했지만 약수 샘을 빙내기 위해서 중앙에 샘을 만들고 싶었고, 또 물줄기가 직선으로 오니 그대로 중앙에 샘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그렇게 하면 겨울에 선생님이 잔디밭에서 스키 타실 때 걸리잖아요.” 했다. 그 말을 듣고 ‘한 가지 스키 탈 때는 걸리겠지.’ 생각했다. 이때 옆에서 일하던 제자들이 “야.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네가 뭘 또 이야기하고 그래? 앞산 생각 안 나냐? 그때 네가 시킨 일 안 해서 무너졌잖아? 저리로 가.” 했다. 선생은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고 “같이 일하게 뉘라.” 했다. 사실 그가 전에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약수 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나은 생각을 했으니, 그 말을 받아들였다. ‘성자는 항상 더 많이 아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생각하고, 그의 생각을 성자의 생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미 잔디밭 하단 중앙에 작업하다가 즉시 지금 약수 샘 위치로 옮겨서 작업했다. 주님은 “산 밑에 샘이 있으니 자연스럽고 어우러져 조화롭지 않느냐. 내가 그를 통해서 한 말이다.” 하셨다. 다 만들어 놓으니 역시 그 자리가 명당이었다. 만일 약수 샘을 잔디밭 하단 중앙에다 만들어 뉘다면, 스키 탈 때 걸리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청중 집회를 할 때마다 늘 걸리는 약수 샘이 될 뻔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장단점이 있다. 그중에서 더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무(無)에다 놓고, 전체를 생각하고 행하여라. 어떤 한 제자가 지난날 실수했으나, 그것만 생각하면 의식되어 그를 다른 데 쓰지 못한다. 하늘의 뜻이 있어서 거기 함께한 자인데, 그를 전체의 문제아로 보면 안 된다. 그를 썼더니, 성자는 그를 통해서 그 센터의 일을 하셨다.

9. 지도자는 꼭 성자를 보고, 전체를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 면에서 가장 합당하고 전문적인 사람을 시켜서 행하여라. 그러면 그 조, 팀, 구, 기관, 부서는 더욱 차원을 높이게 된다. 그리고 전체가 이상적이고 빛나게 된다.

10. 큰일을 할 때 실수를 한 자를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 시켰다. 다섯 번이나 실수했는데 여섯 번째에 또 일을 시켰더니, 여섯 번째에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어 냈다.

11. 물건도 더 나은 것을 사는 것이다.
12.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으로 쓰고 행하여라.
13. '66'보다 한 수 높은 '77'을 써라.
14. '99'보다 한 수 더 많은 '100'을 써라.
15. 낮은 자는 한 수 더 오르도록 하자.

<2013년 3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클 때는 왕도, 장수도 모른다.
2. 왕도, 장수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배우고 크기 때문에 모른다.
3. 단순히 보면 모른다.
4.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왕릉에서 켜다는 청자기 하나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자기 나라에 와서 골동품상으로 제일 알아주는 곳으로 가서 비밀스럽게 사연을 말하고 사겠냐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4000만 원을 준다고 했다. 좀 더 달라고 하니, 못 준다고 했다. 다시 다른 전문가에게 가니, 거기서는 1억 2천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팔았다. 청자기를 산 사람은 다시 잘 손질하고 광택을 내서 돈이 많은 한 대기업 사장에게 보여 줬다. 대기업 사장은 "내가 도자기를 많이 취급해 봐서 아는데, 이 도자기는 색이 너무 좋습니다. 9억을 주겠습니다." 했다. 고로 팔았다. 도자기의 최종 주인은 도자기 색이 너무 빛나고 좋아서 감정을 해 보니, 그 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좋은 청자기라고 했다. 결국 국보 6호에 올려 달라고 했다. 그 청자기는 수백억의 값이 나는 귀한 보화라고 했다. 모르면 천하에 귀한 것이라도 헐값에도 못 산다. 그 청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청자기를 사고 판 자들은 결국 그 결과를 알게 되어 생각이 깊어졌다. 이 이야기를 듣는 자들도 생각이 깊어진다.
5.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도 아는 자들만 귀히 대한다. 모르는 자들은 헐값에 맞으라고 해도 맞지 않고 뿌리친다.
6. 한국 인천 지역의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고려청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최고의 재벌에게 가서 사라고 했다. 그 재벌은 20층 빌딩을 주고 그 청자기를 샀다. 그것은 귀한 국보가 되었다. 그 가치는 수백억이 된다고 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였다.
7. 세상 밭에 감추인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의 보화다.
8. 지금은 보화가 만물 가운데 각종으로 숨겨져 있다.
9. (주 편) 나 성자가 계시를 주기 위해 쓰는 귀뚜라미도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혹시 밟혀 죽을까 봐 네가 온갖 신경을 쓰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나 성자가 오죽이나 신경 쓰겠느냐.
10. 생명들은 가까이할수록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
11. 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료다. 만들어야 된다. 선택은 자기 자유다.
12. '신앙'은 공부가 아니다. 세상 학문이 아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13. 돌조각가가 완전하게 형상을 만들듯이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14. ‘건물’도 지어 놓고서 개방하고 보여 주며 말하듯이, ‘사람’도 만들어 놓고서 말하고 자랑하여라.

15. 월명동도 만들어 놓고 “성지 땅 자연성전이다.” 말하니, 모두 인식이 되었다.

16. “주는 인(人)구름 타고 온다.” 하고 인식시키려면, 인구름을 만들어 놓고서 말해야 된다. 그래야 실감 나게 믿어진다.

17. “미인이다.” 하려면, 미인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 사람이 미인이다.” 해라. 그러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성장기에는 앞으로 미인이 될 자라도 안 믿는다.

18. 만들어 놓고서 말하여라.

19. 애벌레도 나비로 변할 때가 있다. 그때 못 하면 겨울에 죽고 끝난다. 이와 같이 신부로 변화될 때가 있다. 신부 시대인 이때 해야 된다. 이때 못 하면 못 하고 끝난다.

20. 사람을 다스릴 때는 ‘성자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 두 가지로 다스려야 된다.

21. 안 한 자가 손해다.

22. 사랑을 받고도 안 한 자가 손해를 본 것이다.

23. 나는 손해를 안 봤다. 나의 말을 듣고도 안 한 자가 손해를 봤다.

24. 하늘의 국고는 전능자의 것이다.

25. 내 마음이 내 혼체를 쓰고 혼의 세계에서 활동해 보니 좀 별로라고 허무하다고 성자 주님께 말했다. 이때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육도 별 계획 없이 그럭저럭 살면 그렇지 않느냐. 마음과 정신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영도 혼도 육도 희망이 있고 보람 있고 기쁜 것이다. 별의별 일을 해도 희망찬 것이 없으면 영이고 혼이고 육이고 다 그저 그런 것이다.” 하셨다.

26. 육의 세계에서든, 혼의 세계에서든, 영의 세계에서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살 만하고 사는 것 같다.

27. 터널도 뚫다 보면 뚫리고, 정리하면 개통되어 차들이 매일 줄을 지어 다닌다. 이와 같이 소통에 있어서 처음에 성자의 허락이 났어도 계속 터널 뚫듯이 소통해야 개통이 된다.

28. 개통됐어도 소통이 안 되면 또 막힌다. 막힌 것은 계속 소통하여 다시 개통해야 된다.

<2013년 3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 이번 주에는 성자의 계시 글을 금요일에 전해 준다.

1.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이 운명을 좌우시킨다.

2. 꿈에 사랑하는 자를 보지만 해도 기쁘다. 하물며 성자를 보면 어떠하겠느냐. 하지만 성자인지 모르고 보면, 무슨 기쁨과 희망이 있겠느냐.

3. 만일 천국의 삶 모두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생활을 하는 곳이라면, 천국도 평범한 세계일 것이다.

4. 만일 천국의 사랑이 세상처럼 이성의 사랑이라면, 천국도 세상의 수준과 같을 것이다.
5. 천국의 사랑은 무한한 정신적 사랑 세계라서 영원한 사랑의 기쁨이 지속된다.
6. 천국에서의 모든 생활은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극치로 사랑하는 순간같이 되어 있다. 마치 세상에서 남녀가 육체 사랑을 하듯이, 천국에서는 영체로서 정신적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삶 속에서 산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다.
7. 천국은 육체의 삶으로는 이해를 못 시킨다. 천국은 '영체'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8. 영체는 세상 육체 사랑을 다 가지고 행하되, 삶 속에서 '정신'으로 행한다.
9. 천국은 신하가 왕을 사랑하며 살듯 사랑하는 세계가 아니다. 마치 한 여자가 한 왕을 사랑하면서 한집에서 같이 사는 것같이 천국에서는 하늘 궁에서 하늘 신부가 되어 사랑하며 산다. 그러나 한집이 아니고 하늘 궁에서 각자의 집에서 산다.
10. 천국은 영으로 사니, 세상같이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매일 만나고 매일 사랑한다. 시간은 상관없다.
11. 세상에서도 마음과 정신으로는 한 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과 교신한다. 영은 수억 명과도 한 번에 여유 있게 교통하고 만난다. 시간적 제한을 벗어나서 산다. 성자는 이같이 사랑하는 자들과 교통하고 만나신다.
12. 지금도 성자는 신이어서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을 동시에 다 만나신다. 인간이 육이어서 세상 식으로 생각할 뿐이다.
13. 각자 성자 주님께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여라.
14. 성자는 '사랑의 힘'으로 당기신다.
15. 성자는 사랑당이라서 다른 것으로는 안 끌려오신다. 오직 사랑이다.
16.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으로 당겨야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
17. '사랑' 때문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육과 영을 사망에서 끌어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구원만 해 준다. 오직 사랑하는 자만 끌고 간다.
18. 섭리사에서도 그러하다. '사랑' 때문에 구원했다. 섭리사의 모든 일이 사랑의 일이다. 그러다 천국까지 간다.
19. 고로 사랑의 에너지가 없어지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 하여 떨어진다.
20. 성자와 불같이 사랑할 때는 마치 시냇물이 맑게 내려오는 것 같다. 그러다 사랑이 식으니 금방 물이 말라 버렸다.
21. 사랑이 물과 같다.
22. 변하지 않고 마음도 몸도 다 성자에게 주고 산다고 해 봐라. 성자가 즉시 받으시고 구상하신다. 그리고 각종 임무를 주신다.
23. 진리, 성령, 은혜, 사명 모두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주신다. 사랑을 완성하여 일체 되어 같이 살기 위해서다.
24. '열매'를 보고 농사짓듯이, '사랑'을 보고 전체 뜻을 펴신다.

25. 사랑은 사랑으로 통한다.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랑의 마음을 쥐야 성자와 일체 되고 통한다. 성자의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행하면서 맞추는 것이다. 수수께끼 맞히듯 성자에게 맞춰서 행하여라.

26. 천국은 사랑의 한마음 되어 같이 사는 곳이다.

27. 천국은 세상같이 말을 많이 안 해도 서로 마음을 아니, 알아서 행한다.

28.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하니 알아서 행한다. 천국도 그러하다. 영이라서 거의 상대의 마음을 안다.

29. 사람이 자기가 아는 일은 묻지 않고 말없이 행하듯이,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아니까 서로 대화 없이도 거의 할 일을 행한다.

30. 세상에서는 늘 배운다. 모르면 장애물이 생겨서 막히니 전진을 못 한다. 배우고 또 장애물을 해결하다 보면, 인생이 너무 짧다.

31.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알고 산다면, 하루를 살아도 일주일이나 한 달 살 것을 산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이시다. 고로 삼위와 일체 되어 살면, 삼위께 묻지 않고서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며 해결하며 가는 자보다 수백 배 먼저 앞서 가서 산다.

33. 인생, 앞의 장애물을 헤치며 가다가 인생 다 간다.

34. 걸어가지 말고 날아가면 장애물이 없다. 주는 어디 가도 주다. 주와 함께하는 자는 날아간다.

35. 자식은 부모의 몸으로 만들었으니 부모의 몸이요, 부모의 삶과 빠다.

36. 이와 같이 인간은 삼위일체의 몸으로 만들었기에 삼위일체의 몸이다. 삼위일체의 삶과 빠다.

37. 하늘의 상대체는 지구다. 고로 삼위의 상대체는 인간이다.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와 같다. 실상 한 형제끼리 결혼하고 사는 것이다.

38. 형제 단계는 신약 차원이고, 결혼 단계는 성약 차원이다.

39. 하나님은 구원역사를 시작하시고 1차로 형제 단계를 깨닫게 하여 종교를 '형제'로 묶으셨다. 그리고 2차로 애인 단계를 깨닫게 하여 '신부'로 묶어 지구촌 구원역사를 결말짓고 계신다. 최종으로 '신부'로 묶어서 그 영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40. 전능자 삼위일체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상을 공의롭게 대하지 못한다.

41. 임금은 백성들 전체가 다 자기 것이라서 자기 것으로 대하고 다스리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고로 공의롭게 본다. 그러나 백성 중에서 세운 자는 전체가 다 자기 것이 아니라서 한쪽으로 치우치니 공의롭지 못하다.

42. 가정의 부모는 다 자기 아들딸이라서 양쪽 모두 안 다치게 공의롭게 대한다. 그러나 형제들 중의 대표는 모두 자기 아들딸이 아니라서 공의롭게 대하지 못한다.

43. 섭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도자는 본체가 아니라서 공의롭지 못하다. 오직 본체만이 모두 자기 것이니까 자기 삶과 뼈같이 양단을 보고 공의롭게 대한다.
44. 본체의 대함과 지도자의 대함은 다르다.
45. 본체가 볼 때는 섭리인 전체가 주의 신부다. 고로 신부로 대한다. 그러나 그 밑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만 사랑하며 대한다. 고로 저울이 이리저리 기운다. 고로 늘 본체 중심, 성자 중심이다. 섭리의 모든 자들은 성자와 본체 앞에 신부다.
46. 지도자가 보고 대하는 것과 사랑하는 자가 보고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47. 지도자들은 자기 교회 교인이나 자기 부서 부서원만 자기 것으로 대한다. 고로 다른 자들과는 다르게 대한다. 본체는 섭리 전 교회와 부서를 하나로 보고 공의로 대한다.
48. 모두 주의 신부다. 고로 지도자가 볼 때는 자기 것이 아니라도 본체의 것은 된다.
49. 본체와 일체 된 자는 전체를 공의롭게 대한다.
50. 섭리 전체 모든 자들을 본체와 같이 보고 대하는 자만이 주와 함께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다.
51. 손가락만 챙기는 자는 거기 지도자다. 발가락만 챙기는 자는 거기 지도자다. 온몸을 챙기는 자가 전체 지도자다.
5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체의 주인이시다. 고로 우리의 원수도, 우리가 싫어하는 자도 챙기신다.
53. 우리끼리나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54. 청중이 없으니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로 지도자는 괴로워도 청중을 모아야 된다.
55. 때와 청중이다.
56. 일을 충실히 하는 자가 없어지면 표가 나지만, 노는 자가 없어지면 표가 안 난다. (교육 계시)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신 세계의 육신이나 영의 세계의 혼과 영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또 성자가 계시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2.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성자가 계시하여 보여주는 것이 있다.
3. 다 계시가 아니고, 다 자체 실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4.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을 뜨면 다 볼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자체로 누구나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나 각자 차원에 따라서 성자에게 계시를 받기도 한다.
5. 자신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달아서 오는 계시가 있고, 성자 주님이나 천사나 협조 영이 깨우쳐 주는 계시가 있다.
6. 자기 능력으로 자체적으로 보고 깨닫는 것이 있고, 성자에게 받는 계시가 있다. 이 두 가지가 계시의 종류다.

7. 말씀을 잘 듣고 전문적이 되면, 자기가 많이 깨닫고 알게 된다.
8. 공부에도 자기가 독학해서 공부하는 것과 누가 가르쳐 주어 배우는 것이 있다.
9. 하나님과 성자의 뜻에 의해 깨닫기도 하고, 자기가 노력하여 자기 영이 알기도 한다.
10. 계시는 '자기 차원대로' 보고, 받는 것이다.
11. 계시에는 자기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있다. 이는 자기 책임분담이라 할 수 있다.
12. 자기 책임분담으로 깨닫는 것도 합당한 주의 뜻이면, '옳다.' 인정받고 전할 수 있다.
13. 개인에게 주는 계시는 개인이 참고하여 개인이 쓰면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는 교훈이 된다.
14. 모든 자에게 주는 계시는 모든 자에게 전해야 된다.
15. 성자의 계시는 사명대로 그때그때 합당한 대로 준다.
16. 노란색이 문제가 아니다. 2급이 문제가 아니다. 주님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자기 나름대로 풀 잠언이 아님.)
17. 성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최고 문제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18. 성자 품을 떠나면 문제투성이다.
19. (내게 잘하는 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니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신앙을 이끌어 주어라. 그것이 나의 축복이다.
20. (기도 다 하고 누웠다 일어났다 하다가 또 누우니, 내가 혼자 제자리를 뱅뱅 돌며 어지러워할 때. 새벽 5시 10분)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자와 같다. 고로 나중에는 어지러워서 넘어지게 된다.
21. (위의 잠언을 보고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낱알이 기록하네.
22. 성자 주님이 코치하지 않으시면, 순간 결길로 가진다.
23. 이왕이면 멋지게 계획하고 시대를 잡아 나가야 후대 1000년 동안 역사의 거울이 되어 외치게 된다.
24. 메시아의 노정은 인간이 만들지 않는다.
25. 역사는 인간이 만들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26. 깨달은 것도 배운 것도 '이론'이다. 행한 것만 '실존'이다.
27. 깨달아서 얻은 잠언, 배워서 얻은 잠언, 행함으로 얻은 잠언이 있다.
28. 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실존'이다.
29. 자기가 선악 간에 행한 만큼만 천국 쪽으로, 지옥 쪽으로 가진다.

30. 미련한 자는 많이 행해서 얻고, 지혜로운 자는 적게 행해서 얻는다.
31. 지식과 지혜로 자기도 세상도 발달되어 간다.
32. 주와 함께 하는 것이 지혜다.
33. 지혜자는 높은 차원인 반석에 집을 지어 홍수가 나고 범람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34. 미련한 자는 욕을 중심해서 영을 끌고 가고, 지혜로운 자는 영을 중심해서 욕을 끌고 간다.
35. 지혜가 없으면 짐만 커진다.

<2013년 4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보고 확인하지 않고 행하면, 시간을 벗어나서 행하는지 모른다. 이와 같이 ‘표상’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표상을 벗어나서 행하는지 모른다.
2. 기준자와 표상자를 ‘한 번’ 보고 행하고, ‘또’ 보고 행하기다.
3. 기준자가 앞에서 행하면 쳐다보면서 행하듯이, 항상 표상자를 쳐다보고 행하기다.
4. 자기 식으로 행하면 자기 행위에 갇혀 있기에 어디 가서 행하든지 표가 나서 누구나 그에게는 배우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다.
5. ‘생각’과 ‘행위’ 모두 성자와 일체 되고, 분체와 일체 되어라.
6. 원본을 보고 한 번 쓰고, 또 보고 쓰기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7. 성경 표상을 벗어나 자기 생각의 차원으로 행하고 산 자들은 자기 식으로 뜻을 이루고 말았다. 고로 기다린 역사도 맞지 못했다.
8. 틀린 생각과 행위를 고치기다!
9. 하나님의 뜻을 틀리게 행하면, 그 욕도 영도 다른 곳에 가 있다.
10. 자기 식, 자기 생각으로 행한 것은 틀려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대로 행한 자만 표상으로 삼으신다.
11. 성자와 분체에게 줄 맞추기다.
12. 틀리게 하는 자는 불순종자다.
13. 글씨도 정확하지 않은 것은 글씨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정확하지 않은 자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 수고가 헛되게 하신다.
14. 주소가 틀리면, 틀린 주소대로 가게 된다. 주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15. 전화번호에서 하나만 틀려도 다른 자에게 전화를 잘못 걸게 된다. 이와 같이 조금만 자기 생각으로 해도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

16.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시킨 일을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성자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는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17. 분체가 시킨 일을 하기는 하되, 자기 생각을 넣고 하는 자 역시 원본 글씨에 획을 더 붙이고 하든지, 빼 버리고 하는 것과 같아서 분체는 금방 안다.

18. 표상자를 보고 따라서 행하기다!

19. 표상자가 그 시간에 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기다.

20. 표상자가 하는 대로 못 하면, 보다 못 한 데로 간다.

21. 자기가 더 잘하려다가 자기 식이 된다.

22. 표상자가 하는 대로 못 하는 자도, 자기 식을 더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23. 성자는 절대 자신이 계획한 일만 하기 원하시고, 오직 그것을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4. 주를 통해 시킨 일 외에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이 그대로만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게 된다.

<2013년 4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25. 주가 보낸 자가 거지든지, 어린 자든지 그 사람을 보고 대하지 말아라. 보낸 자를 보고 대하여라.

26. 하나님을 기다리던 자들이 하나님을 보고 안 대하고 예수님만 보고 대하다가 자기 행위대로 망했다.

27. 항상 심부름꾼을 보기보다 누가 보냈는지 보낸 자를 보고 대해야 제대로 대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8. 심부름꾼을 통해서 주가 행하시고 전능자가 행하신다.

29. 그가 심부름꾼으로 쓰기에 합당하니 그를 쓰는 것이다. 인물도, 그 어떤 것도 안 본다.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하니 쓴다.

30.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다. 그가 거기에 쓰기에 합당하니, 성자가 쓰신다.

31. 청중이 있어도 그 일에 누가 합당한지 보고,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쓴다. 스스로 하는 자는 그 사람만 보고 대한다. 전능자와 주가 시켜서 행하니, 내용을 보고 행하여라.

32. 성자는 분체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할 일을 시키신다. 보낸 자를 보고서 내용을 고치지 말고 그를 따라서 행하여라.

33. 하나님과 성자는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그의 몸으로 합당한 자를 쓰고 그를 통해 할 일을 해 오셨다. 그런데 그 사람만 보고 대한 자는 그와 닮고 그를 찢박했다. 고로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다.

34. 내가 보낸 자를 나와 같이 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대하면, 다른 자를 다시 보내어 그가 모르게 행한다.

35. 주가 제자들을 보내니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막고, 외면하고, 말을 돌리고, 모사를 쓰며 대했다. 고로 또 다른 자들을 보내어 그들이 모르게 행하셨다.

36. 주가 보낸 사명자와 싸우는 자는 주와 싸우는 자다. 무지 속의 상극 세계다.
37. 하나님은 정녕코 뜻을 이루신다.
38. 표상자는 항상 주를 따라 행해야 된다.
39. 주가 직접 시킨 일은 따라서 행하는데, 주가 심부름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은 사람만 보고서 이리저리 핑계 대며 자기 생각으로 행한다.
40. 계시에 관한 신령한 일은 성자도 분체도 계시받는 자를 통해서 일을 시킨다. 계시를 받는 자는 원본 그대로 받아야 된다. 성자와 분체의 뜻을 전해야 한다. 그러니 듣는 자들도 심부름하는 사람만 보고서 듣지 말고, 그를 보낸 자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대하여라. 그 계시 속에 네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까지 들어 있어 전한다.
41. 하루면 배울 것을 평생 가도 못 배워서 모르고 산다.
42. 성자와 분체에게 하루면 배울 것을 못 배우고 끝나니, 평생 모르고 산다.
43. 영계에 가면 한 번에 배울 것인데, 육계에서는 평생 배워도 못 배운다.
44. 새 시대에서는 하루면 배울 것인데, 구시대 기성에서는 일생 배워도 못 배운다.
45. 모르는 자는 어린아이다.
46. 지도자가 모르면, 그 교회 교인들 모두 모르는 자가 된다.
47. 지도자는 밤낮 노력해서 배워라.
48. 배우지 않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49. 주께 제대로 배워라!
50.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행하기다!
51. 오직 성자와 분체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행하기다!

<2013년 4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대가 보인다.
2. 남녀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 여자에게 남자는 아버지로 보이고, 가정의 왕으로 보이고, 남편으로 보인다. 남자에게 여자는 어머니로 보이고, 여왕으로 보이고, 부인으로 보인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상대가 보인다.
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지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보인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이고, 어느 때는 천왕으로 보이고, 어느 때는 신랑으로 보인다. 자기 '기준, 수준, 생각, 차원'에 따라서 보인다. / 고로 하나님과 성자는 시대에 따라 만들어지는 대로 대하시기에 신약과 성약을 다르게 대하셨다.
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사랑하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행하는 차원대로 보인다.

5. 메시아가 왔어도 말씀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말씀이 그리 중요하다. 말씀으로 구원한다.
6. 말씀이 끊어지면 형벌 기간에 들어간다.
7.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노아 때까지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8. 말씀으로 '사랑'도 선포되고, '창조 목적'도 알게 되고, '역사'도 일어난다.
9. 생일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한 형제들이 자기 현장에서 일하던 이야기만 하면, 생일 맞은 자는 사라지고 생일잔치 분위기도 사라진다. / 이 시대에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재림, 성자, 분체, 성령, 영, 휴거, 창조 목적' 이야기를 하여라. 지금 진행 중이다.
10.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지도 않는데 왜 할까? 시간이 지나면 밥 먹은 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먹는다. 왜일까? 그때 그 순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11. 젊었을 때 사랑한 것은 늙으면 기억도 안 난다. 그런데도 사랑하면서 산다.
12. 과수원지기가 봄에 나무에 퇴비하고, 물을 주고, 땀을 흘려 수고하며 정성스레 사랑으로 관리해 주면서 봄·여름·가을까지 나무에 투자하고 수고한다.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한다. 열매를 취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리 투자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는다.
13. (왼쪽에 그림 넣고, 오른쪽에는 잠언 자막이 나간다.) 나무는 사람이고,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사랑으로 나무를 키워 열매를 취하시기 위해 그 대가로 늘 사랑하고 돕고 관리해 주신다. 그러니 나무는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못 맺으면, 관리도 사랑도 멀어진다. / '열매'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마음'이며, '사랑의 행위'다. (초안 다시 그려서 넣기. 만화로 핵심만 그리면 됨.)
14. (왼쪽에 그림 넣고, 오른쪽에는 잠언 자막이 나간다.) 과일나무가 해마다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바치듯이, 매일 수시로 성자께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행실을 바쳐라. 성자께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성경에서 포도원을 다른 자에게 준다고 한 대로 열매를 바친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초안 다시 그려 넣기. 만화로 핵심만 그리면 됨.)
15. 성자도 분체도 사명을 맡겼는데 사명지에서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제때 주인에게 열매를 바치지 않는 자다.
16. 성자가 사랑해 주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성자는 기뻐하신다.
17. 사랑해 줘도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반응을 안 보이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의 대가가 없는 고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18. 상대를 사랑해 주었는데, 상대가 사랑을 받고도 반응이 없으면 기쁘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주가 사랑해 줘도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19. 상대 스스로의 반응도 있고, 사랑해 주었기에 그로 인해 보이는 반응도 있다.
20. 스스로의 반응은 자기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에 보이는 반응이다. 하나님도 성자도 우리가 스스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님과 성자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다.
21. '얼마나 사랑하느냐?'보다, '얼마나 사랑이 간절한가?'다.

22. 잘살든지, 못살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성자와 같이 사는 삶이다.

23.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진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

24. 한 번 사랑했으면 육으로는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영으로는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25. ‘자기 마음’과 ‘자기 행실’은 서로 싫어도 같이 살아야 한다. 바늘 가는 데 실 가듯이, 마음 가는 데 행실이 가기 때문이다. 자기와 구세주와의 관계는 부모 - 자녀 격도 되고, 사랑으로 맺은 사랑의 몸 격도 된다.

26. 주와 스치기만 해도 영원히 가는 것이다.

<2013년 4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께서 귀하게 보고 가까이해 주셨기에 귀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자와 같은 자다.

2. 전에 주께서 귀하 보고 대함으로 백성들이 우러러보던 자가 그 가치를 모르고 행했다. 이에 주가 손을 놓으니, 백성 가운데로 떨어졌다. 그 어떤 자는 세상 바다에 떨어져 몸부림을 쳤다.

3. 주께서 귀하 대하며 가까이해 주실 때 가치를 알고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 때가 지나가서 영영 기회를 잃는 자가 있고, 혹은 자신이 몸부림쳐 행하여 그제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겨우 따라오는 자도 있다.

4. 주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아라!

5. 자기가 만들어서 주가 원하시는 위치까지 가겠느냐.

6.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인생인데...” 한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께서 택하여 만드니까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그가 가치를 모르면, 주께서 놔 버리신다. 그러면 예전에 만들기 전의 위치로 떨어진다.

7. 주는 능력과 지혜로 행함이 탁월해서 일순간에 뛰어난 자로 만드신다.

8. 주가 애태우며 행할 때 전능자도 함께 행하신다.

9. 가치를 모르는 자는 같이 못 간다.

10. 가치를 아는 만큼 주를 대하고 따른다. 가치는 자기가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이다.

11. 가치를 알려고 배우는 것이다.

12. 주가 그렇게 사정해도 ‘복덩어리’를 차 버리고, 자기중심으로 ‘흙덩어리’를 가지고 고통을 받으며 몸부림을 친다.

13. 귀한 것을 모르는 자에게는 주지 말아라. 그래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미련 없게 대해 준 것이다.

14. 황태자가 백마 타고 그렇게도 같이 가자 말해도 자기 먹고 살기 위해 자기 토지를 갈고 밭매기에 바쁘다. 황태자가 떠난 후에 허전하고, 적적하고, 마음이 괴롭고, 녀이 나가서 먼 산만 쳐다보며 ‘왜 내가 그를 따라가지 않았지?’ 하며 울고 짜고 미친 짓을 한다. 일평생 두고두고 푸념하며 살 것이다.

15. 호미 자루를 내던지고, 광주리를 내던지고 따른 자들은 황태자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다 보면 황금 마차에 오르게 된다. 그제야 놀라고 그의 궁에 들어가서 황홀 지경에 빠진다.

16. 그렇게도 애간장을 태워 가며 밤을 지새우면서 사연을 읊어서 보냈건만 그 가치를 모르다니, 후에 황금 마차 타고 가는 자를 보고 ‘내 자리가 저 자리인데...’ 한탄하며 통곡한다.

17. 주는 누구나 각자 자기 때에 하늘 마차를 대 놓고 천하일색 공주처럼 대해 주었다. 자기 때에는 몰라보고 가치 없이 해 놓고서, 다른 자가 하늘 마차를 타고 가니 “왜 내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었나?” 하며 미련한 말을 해 대고 서운하다고 한다. 그러니 사탄이 “내 마차를 타자. 이것은 시기, 질투, 서운함의 마차다.” 한다.

18. 성자도 분체도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었다. 본인이 귀히 안 보고 안 했을 뿐이다. 모르면 깨달도록 깨우쳐 주고 이야기도 해 주었다. 본인이 안 해서 못 한 것이다. 본인 선택이었다.

19. 섭리인 전체 모두에게 시대를 깨우쳐 주려고 성자도 분체도 1년 내내 하루 온종일 가르치며 깨우쳐 주는 것이 끊임없었다. 자기 때에 해야 된다.

20. 자기 기회는 순간 온다. 우연같이 오고, 환난 중에도 온다. 그 기회를 잡고 그 노선에서 먼 길을 가듯이 꾸준히 행하며 가면, 환난 풍파를 겪으면서 가는 중에 홀연히 얻을 것을 얻게 된다.

21. 아무나 하늘의 큰 기회를 못 얻는다. 예정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어야 된다.

<2013년 4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달고 맛있는 잠언’

1. 삼위일체는 천지 만물과 지구와 같으시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다. 그것을 인간들이 자기 개성대로 쓰게 하신다.

2. 천지 만물은 공기, 물, 태양빛 등 수억 가지를 인간에게 준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는 인간에게 수억 가지를 주신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직접’ 주기도 하시고, ‘지상에서 삼위일체의 몸으로 쓰는 사명자를 통해서’ 주기도 하시고, ‘만물과 물질의 존재를 통해서’ 주기도 하신다. 그리고 받기도 하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개인에게 직접 역사하여 주신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의 몸으로 쓰는 메시아, 중심자, 선지자, 그때그때 합당한 자를 통해서 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받기도 하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합당하게 구하고 찾으면 주기도 하시고, 감사하여 드리면 받기도 하신다.

7. 만물의 보물들이 존재하고 있어도 ‘아는 데’ 눈을 뜨지 못하면, 모두 하나의 만물로만 보인다. 금도, 다이아몬드도 그것에 대해 배우고 알지 못했을 때는 모두 돌덩이로 보았다. / 하늘에 속한 것들도, 진리도 배우지 않으면 보통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몰라서 똑같은 사람으로만 본다. / 다이아몬드도 하나의 돌이고, 금도 하나의 쇠다. 그러나 질이 다르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도 하나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질이 다르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 육으로 쓰는 자, 곧 시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일반 돌과 차이가 있듯이, 금이 일반 쇠와 차이가 있듯이 차이가 있다. 그 가치도 다르다. 그를 ‘자기 것’으로 삼는 자는 비싼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시대에 따라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모신 자는 그 시대에 최고로 가치 있는 자다.

10. 성약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이 시대에 해당되게 전능자를 모시고 사는 자는 지구가 생긴 이래, 종교 역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위치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영이 최고 위치의 천국으로 가게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명자를 시대에 해당되게 믿지 않고 행하지 못하는 자는 마치 자기 애인이 될 자를 형제로 대하면서 사는 자와 같다. 시대에 해당되게 제대로 알고 맞고 사는 자는 자기 애인을 신랑으로 맞고 자기 집에서 같이 사는 자와 같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때와 시대에 따라서 제대로 모르고 사는 자는 삼위일체를 산이나 강이나 들에 그냥 두고 관광객처럼 구경하며 보는 자와 같다. 때와 시대에 따라서 제대로 알고 사는 자는 수억짜리 희귀종 돌을 주워서 자기 집에다 놓고 자기 것으로 삼아 소유의 기쁨과 재물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자와 같다.

13. 하나님과 구세주를 청중 속에서 구경하는 자의 기쁨과, 자기 것으로 삼고 사는 자의 기쁨은 땅과 하늘 차이다. 하나님과 구세주를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아라!

14. 시대에 따라서 자기 책임을 하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시대에 따라서 차원을 높여 사랑하는 자로 삼고 대하신다.

15. <구시대 초림 시대>는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형제 같이 지내는 시대로서 형제 이상의 사랑을 못하는 시대다. <새 시대 재림 시대>는 하나님과 성자의 계획대로 한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에게 “이제는 형제 차원의 사랑은 싫다. 사랑하려면 애인, 신부 차원으로 사랑해라. 나는 100%의 사랑만 받고, 깨끗한 사랑만 받는다.” 하는 때다. 형제같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과 애인같이 사랑하는 자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된다. 무거운 돌을 손으로 드는 것과 중장비로 드는 것 같은 차이다.

16. 재림 성약시대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땅에 오신 성자도, 성자가 땅의 육으로 쓰는 사명자도 ‘신랑의 입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땅에서 사명자부터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성자를 맞고 신부급 신앙생활을 해야지, 구시대같이 형제 입장, 아들 입장으로는 성자를 맞을 수도 없고 성자와 통할 수도 없다. 신랑을 맞는 자는 그 신랑을 신부 입장에서 사랑한 자다. 그만 신랑을 맞는다.

17. 재림 때 성자는 성경의 예언대로 ‘신랑’으로 오시고,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18. 성자는 땅에서 성자를 신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맞은 자를 통해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와 같이 신부가 되게 하신다.

19. 땅에서 ‘육신’이 먼저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가 보낸 구원자를 신부급 차원에서 맞는다. 성자는 그 육을 통해서 땅에 이를 휴거 역사를 이루며 신양의 혼인 잔치를 하신다. 이때부터 <재림의 역사>는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 먼저는 신령한 영이 아니고, 육이다. 먼저 육신이 행하면, 그 혼도 영도 온전히 변화되면서 성자를 신랑으로 맞는다. 그렇게 땅에서 살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재림하시면, 신령한 영이 이어서 휴거되기 시작한다. 영은 천국으로 휴거된다.

20. 지난날 6000년 종교 역사를 보아라. 인간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졌다. 성약 재림 때 ‘육 휴거’와 ‘영 휴거’도 인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 성자가 땅의 육으로 쓰는 한 사람만 알고 가르친다.

21. 구시대 사람들은 아예 구시대적으로 생각하니, 전능자 성자가 행해도 모른다.

22. 구시대에서는 새 시대 역사를 안 한다. 마치 어렸을 때는 결혼을 못 하듯 구시대에서 새 시대 역사를 못 하는 것이다. 새 시대 역사는 성장되어 알고 깨달아 새 시대를 맞은 자들만 편다.

23. 어렸을 때 윗집에서 다 큰 자가 혼인 잔치할 때 가서 음식만 먹었지, 왜 하는지도 몰랐다. 구시대는 어린아이와 같다.

24. 선생이 초등학생 때다.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는데, 길옆에서 땅을 파고 산에서 돌을 캐내어 돌을 굴러 버리는 어른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저씨. 왜 힘들게 돌을 캐내고, 캔 돌을 힘들게 굴러 버려요?” 하고 물었다. 그 아저씨는 “말하려면 힘들어. 너는 어려서 이해시키려면 입이 아파. 너 나무하러 왔니? 어서 해가 지기 전에 나무나 해서 가라. 엄마 기다린다.” 했다. 그 후에 내가 다 커서 알고 보니, 아저씨들이 거기서 황금을 캐고 있었던 것이다. 돌을 캐내고, 금이 없는 돌은 다 굴려 보내는 것이었다. 나도 알았으니 금을 캐내겠다고 하며 몇 달 동안 했다. 그런데 금 반 돈 정도를 캐고 더 이상 못 캐다. 왜?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이다. 이미 그때 금을 엄청나게 많이 캐 간 것이다. 구시대는 어려서 새 시대의 사람들이 다 커서 하나님과 성자를 맞고 휴거 역사를 진행해도 모르고, 또 가르쳐 줘도 어려서 못 한다. 그러니 새 시대로 온 자들은 새 역사 재림과 휴거 역사가 자기들에게 해당되고 자기들의 사명이니 자기들이 행하고 간다.

25. 어떤 아가씨가 드레스 입고 급히 가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런 옷을 입고 어디 가요?” 했다. 아가씨는 알려 줘도 어린아이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웃으면서 “나 바빠.” 하고 간다. /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성자의 뜻을 알고 성장하여 새 역사를 가는 자들은 어린 구시대인들에게 알려 줘도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웃으면서 “나 바빠.” 하고 간다.

26. 모르는 자는 어린 자다.

27. 새 시대는 새 기계와 같고, 새 물건과 같다. 새 기계와 새 물건을 쓰려면 사용법을 배워야 된다. 이와 같이 새 시대도 배워야 안다. 모르면 소경이요, 어린아이다.

28. 내가 어렸을 때는 다 큰 마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외지로 떠났어도,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이사 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 이 시대도 하늘에서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새 역사로 떠났어도 구시대 어린아이들은 전혀 모른다.

29. 선생이 열세 살 때쯤 열심히 교회에 다녔을 때다. 주일학교 초등부 우리 반 교사는 늘 “다윗 왕은 용감하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하고 가르쳤다. 나는 “우리 교사님이 시집가면 어떻게 하지? 누가 나를 가르치나?” 하며 수년 간 걱정했다. 그런데 그 교사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교사는 내게 시집갔다는 소리를 안 했다. 이미 아줌마인데 내가 어려서 몰랐고, 교사도 말을 안 해 주었다. / 이 시대도 어린 구시대인들은 모르고, 섭리인들도 어렵면 모른다.

30. 모르면 어린아이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기다린 주가 와서 말을 해 줘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살았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실히 아는 자들만 알았고, 모르는 자들은 긴가민가 반신반의로 따라갔다.

31. 완벽하게 모르면 진행해도 모른다.

32. 기도하여 원했던 자가 섭리사에 와서 살고 있는데도 몰랐다. 알고 나서 그제야 행할 것을 행했다. 아는 것이 일억 천만금을 얻은 것이다.

33.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성자가 지상에 와서 사명자를 통해 재림 역사를 펴셔도 모르는 자는 모른다.

22. 성공한 자들의 말을 들어 보라. 기회를 얻고 꾸준히 행했다. 환난 풍파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행했다. 순간 땅에서 금덩이 줍듯 하지 않았다.

23. 기회는 순간 얻지만, 그 기회를 가지고 뜻과 목적을 이루려면 오랫동안 성장하면서, 갈고닦으면서, 행하면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도전하면서 이루게 된다.

24. 기회를 얻는 것도 그동안 쌓아 와야 된다.

25. 세상이 험하니 성자는 분체를 가리면서 확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니 어느 때는 분체도 마치 차멀미 하듯 혼란스러

왔다. 때가 갈수록 밝히 드러내신다. 이 시대를 따르며 분체를 믿고 인생 투자한 자들은 정말 잘한 것이다.

26.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와서 끝에 가서야 하늘은 확 밝히신다.

27. 애굽에서, 신광야에서 밝히면 위험하다. 보화를 가진 자는 옛 주관권을 벗어나서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화가 어디 있는지 밝힌다.

28. 예수님도 껏속말로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며 입을 손으로 막았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다.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매일 하면 성공한다.

2. 회개도, 기도도, 전도도, 주와 소통도 매일 하면 성공한다.

3. 낙원은 자녀급 세계다. 낙원에 가는 자도 자녀급 조건을 100% 세운 자들이 간다. 천국급 조건을 100% 못 세우고 70%, 80%, 90%밖에 안 된 자가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낙원도 역시 낙원급 조건을 100% 세워야 간다.

4. 천국은 신부급 세계다. 천국에 가려면, 자녀급 역사인 신약역사에서 100% 조건을 세워도 안 된다. 신부급 역사인 성약역사로 와서 100% 조건을 세워야 천국에 간다.

5. 성약역사에 왔어도 천국급 조건을 100% 못 세운 자는 그 밑의 단계로 가는데, 그 밑의 단계의 조건을 100% 세워야 그곳에 간다.

6. 영계는 어디를 가든지, 그에 해당되는 조건을 100% 세워야 된다.

7. 금으로서, 은으로서, 동으로서 100% 조건을 세워야 그 세계에 들어간다.

8. 나무 집을 짓는데, 100%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돌이나 철이 섞여 있으면 그 목재는 거기 못 쓴다. / 영계도 각 세계마다 그러하다. 고로 성자와의 100% 사랑이 아니면, 누구나 성자와 일체 되지 못한다.

9. 성자가 보낸 사명자를 100% 알지 못하면, 천국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고 행하는 만큼 그 위치에 간다.

10. 100% 알고 행하는 자를 영계에서 보면, 그 영이나 혼이 그 위치에서 살고 있다.

11.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살려면, 육지의 짐승이나 사람처럼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육지를 쥐도 육지에서 못 산다. 사람의 영도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에 가도 살 수 있지,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천국에서 못 산다.

12.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역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무지한 인간에게 역울함을 당하셨다.

13. 악하고 무지한 만큼, 육성으로 사는 만큼 자기에게 해를 주고, 남에게도 해를 준다.

14. 겨울철이 왔는데, 계절 자체를 여름으로 만들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겨울같이 왔으면, 모두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15. 세상은 겨울이 왔어도 계절만 겨울이지, 여름같이 만들어 놓고 살 수도 있다. 따뜻한 방과 환경을 만들어서 살기

때문이다. 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 농사를 짓는다. 계절만 겨울이지, 얼마든지 추위를 벗어나 여름같이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 겨울인 '환난기'를 선포하시거나 '심판'을 선포하시면, 개인 한 사람도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육도 혼도 영도 완벽하게 흑암에 묶어 놓고,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과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절대 신은 절대적으로 행하신다. 그러다가 형벌 기간 후에 풀어 놓으면, 그제야 절대 주관권에서 나오게 된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절대자라는 것을 알아라. 삼위일체는 불과 물이 확실하듯 확실하게 행하신다.

16. 참기름도, 꿀도, 음식도 시간이 가면 변한다. 이와 같이 인생도 자기 때만 절정기이지, 때가 지나면 몸도 마음도 변한다. 그때 그 순간이다. '영혼'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영혼은 안 변한다.

17. 천국은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만들어야 갈 수 있다.

18. '영'도 완전히 만들어 놓지 않으면 변한다.

19. 미완성은 변하게 된다.

20. 천국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났기에 안 변한다.

21. 물질세계는 변한다.

22. 영도 마음이 있다. 고로 완벽한 세계에 속해서 살지 않으면 변한다.

23. 영도 영의 몸이 있고, 영의 마음이 있다. 고로 생각도 한다. 영의 생각은 영의 뇌에서 작동된다.

24. 영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천국까지 들어가야 안 변한다.

25. 육신이 지상에서 살아도 육을 통해서 자기 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처럼 안 변한다.

26. 사람의 육신의 마음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변한다. 90% 만들어 놓으면, 10% 마음으로는 다른 데로 잘 못 간다. 90%가 제대로 행하며 당기기 때문이다.

27. 영은 육신을 벗어나면 육신의 제재를 안 받으니, 육의 것에 끌리지 않아서 영의 능력대로 하게 된다. 고로 훨씬 영적이게 된다.

28. 육신이 '영'이라는 도구를 완벽하게 쓰면, 항상 영의 생각을 받고 영의 능력을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

29. 기도하면 육의 마음이 영적으로 합쳐진다. 고로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

<2013년 4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마음' 하나 창조하려고 인간을 창조했다.

2. '마음'이 식물인간같이 되면, 인간은 끝난 것이다.

3. '식물인간 마음'이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떠난 마음이다.

4. 왜 마음이 중요한가? 마음이 살아 있어야 '육신의 행위'도 살고, '혼'도 '영'도 살기 때문이다.

5. 마음이 살아 있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안에 있다는 것이다.

6. 육의 생명은 마음이다.
7. 마음의 실상은 혼과 영이다.
8. 마음의 실상이 육의 행위로 반영되고, 그로 인해 혼과 영의 형체가 만들어진다.
9. <마음>으로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몸>으로 '실체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10. 절대로 지키고, 절대로 행하기다.
11. 재림은 맨 끝에 있다.
12. 모든 것을 다 완성한 후에 있다.
13. 건물을 다 완성한 후에 완공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늘의 신부도 혼과 영을 다 완성한 후에 있다.
14. 가다가 만 자는 성자의 재림을 못 맞이한다.
15. 섭리를 따르다 만 자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몰랐다.
16. 사과나무를 기르다 만 자들은 꽃을 보고 말고, 큰 열매를 보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확실히 못 본 것이다.
17. 과일도 완전히 커야 어떤 과일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물건도 완전히 만들어야 어떤 물건인지 확실히 알게 되고, 하늘이 보낸 자도 하나님과 성자가 다 밝혀야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다. 성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눠서 점진적으로 밝히신다.
18. 하늘이 보낸 자도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에 따라 밝힌다.
19. 이 시대에 성자는 '분체'를 시대에 따라 밝히셨다. 그나마 시대의 찬바람이 부는 환난 때는 덮어 버리고 안 보이게 말씀을 돌리셨다.
20. 마지막에 가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고 보여 준다. 가다가 말면, 과정만 보다가 만다.
21. 가다가 마는 자에게는 구원은 없다. 인생 일생 끝까지 연속해서 주를 따라야 된다.
22. 섭리를 따라오다가 만 자들은 모두 구원이 형성되다가 말았다.
23. <구원>은 '믿고 따를 때까지만' 받는 것이다.
24. <하늘 신부>도 '믿고 따를 때까지만'이다.
25. 끝까지 따라야 끝까지 신부다.
26. 지상에서 육끼리 떨어지고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은 '인생 일생'이지만, 하나님과 주와 떨어지고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은 '영원'이다.
27. 지상에서의 육의 삶이 혼과 영에게 연결되어 영원까지 간다.
28. 영원히 주와 같이 살 자는 주와 같이 사는 것을 매일 배우고 매일 그같이 살아야 된다. 주와 같이 살 때만 주와

같이 산 자가 된다. 주와 같이 살다가 말면, 그때는 주와 떨어지고 헤어져 죽은 자가 된다.

<2013년 4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계시

29. 꿈 세계는 혼의 세계다. 이때 꿈에서 자기와 상대가 나오는데, 자기는 풀 수 있어도 상대는 누가 상징으로 나타났는지 풀기 어렵다. 그 상대는 어느 때는 실제 그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성자 주님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분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상황에 맞게 합당한 자로 다르게 나타난다.

30. 꿈에 자기 앞에 어떤 상대가 나왔을 때, 그 상대는 비유로 보여 주는 것이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상대로 보여 주며, 성자 주님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그 상황은 평소에 성자 앞에 기도를 깊이 하고, 각종으로 주님을 가까이하기 때문에 어떤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 주며 성자 주님으로 나타난 것이다.

31. 꿈의 혼계에서 끝나지 말고, 생시와 연결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풀어라.

32. <비유론>에서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칼, 불, 키, 채찍, 떡, 물 등 여러 가지로 비유하듯이, ‘성자 주님’을 두고도 사랑하는 자로도 비유하고, 나무, 물, 바위, 집, 태양 등 각종 만물을 들어 그 상황에 합당하게 보이며 비유하신다. 성자에게 꼭 물어봐야 풀어 주신다.

33. ‘사람’을 두고 수십 가지의 동물과 식물과 사물로 비유하듯이, ‘성자 주님’을 두고도 수십 가지로 비유하여 혼계에서 나타내신다. 꿈으로도 보고 만물로도 보면서, 생각으로 느껴지기는 하는데 모르는 것은 꼭 주께 물어봐야 된다.

34. 꿈을 풀고, 연관 짓고 연결하여 생시의 것을 풀어야 된다.

35.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꿈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오래전에 신앙의 지도를 받고 늘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이 있는데, 어젯밤 꿈에 그 분이 나타나서 나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40일 금식을 마흔 두 번 했고, 병든 자들도 많이 고쳐 주고, 기도원 원장도 했는데, 돌아가신 지 이미 33년 됐어요. 나는 33년 동안 한 번도 그 권사님 꿈을 못 꿔었는데, 이상하게 어젯밤에는 권사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해 주기를 “주와 주가 그의 몸으로 쓰시는 자가 상징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했더니,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36. 성자와 분체는 자기가 평소에 최고로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자를 보여 주면서 나타나 은밀히 보이신다. 꿈에서 혼체가 활동하여 혼체만 만나지 말고, 꿈을 해석해야 된다.

37. 자기 혼체가 꿈에 상대를 볼 때 사랑하는 자인데, 확실히 누구인지 모르게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러면서 성자로 보일 때가 있다.

38. ‘계시’를 못 풀면, 먹을 것이 들어 있는 보따리를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결국 보따리를 못 끌어서 못 먹는 격이다.

39. 생시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육신과 함께 행한 것이면, 혼계에서 자기 혼체도 그같이 행하는 것이 보인다. 혼체는 평소에 자기 육신이 행한 만큼만 아쉽게 행동하다가 만다.

40. 잠에서 깨기 직전에 혼체가 꿈에서 확실하게 보는 것이 있다. 생시에 잊지 않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에서 깨기 바로 직전에 계시해 주시기도 한다.

41. 꿈에 혼체가 보는 상대가 누구 역할, 누구 상징인지 풀어야 된다. 주께 물어서 푸는 것이다. 계시를 준 자에게 묻는 것이다.

42. 꿈에서 자기 혼체가 본 것이 꿈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생시와 연관된 것이 있다.

43. 영적인 꿈이 있다. 이는 성자께서 혼체에게 꿈에 계시하신 것이다. 만일 이 꿈을 육적으로 풀면, 육이 틀리게 행하

게 된다. 그러나 맞지 않으니, “꿈이 틀렸다. 혼체가 잘못 봤다.” 하고 무지하게 끝낸다. 꿈을 제대로 풀어야 된다.

44. 영적인 꿈이란, 성자 주님과 연관된 계시다.

45. 가령 평소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꿈에 자기와 사랑했다 하자. 성자 주님이 사랑한다고, 여자로, 혹은 남자로 보이면서 행하신 일인데, 꿈에서 자기와 사랑한 사람을 육적으로도 사랑의 상대로 생각하면 틀린 것이다. /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듯, 나 성자가 그 입장에서 너를 사랑한다.” 하는 뜻이다. / 그러니 꿈을 꾸고 깬 후에는 반드시 주께 물어 봐야 주와 연관되는 기회가 된다. 육적으로 무데뽀로 생각하지 말아라.

46. 성자도 분체도 꿈에 계시를 주고 대화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 반드시 ‘기도’로 대화하여라.

47. 육신이 자면서 희망의 꿈만 꾸려 하지 말고, 또 혼체로 활동만 하려 하지 말아라. / 낮에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자기 육신과 함께 행하느냐에 따라서 생시에도 주님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 밤에 꿈에서 혼체가 보면, 생시의 육의 생활도 하나의 유형 세계 꿈으로 보인다.

48. 인생은 밤낮 꿈속에서 살아간다.

49. 밤에는 혼계의 꿈속에서 살아가고, 낮에는 육계의 꿈속에서 살아간다.

50. 밤에 꿈꾼 것이 낮에 생시에 이루어지고, 낮에 생시에 생활한 것이 밤에 꿈속에서 이루어진다.

51. 꿈에서 혼체가 행한 것만 신비하고 깊고 황홀하다 하지 말고, 생시에도 주와 같이 생활하여라. 그러면 신비하고 황홀하다.

52. 지금 낮에 성자 주님과 대화하며 이 잠언을 쓰고 있다. 얼마나 황홀한지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수수만년 동안 못 푼 것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대화하면서 쓰고 있다. 지구가 생긴 이래,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풀어 주며 깨닫게 해 주는데,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기쁨을 어떻게 남녀가 사랑하는 기쁨에 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깊은 기쁨을 세상에서는 비할 것이 더 없으니, 남녀가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 주실 뿐이다.

53. 오늘 새벽 12시 45분에 잠에서 깨서 새벽 6시 10분까지 기도하다가 20분을 더 채우지 못하고, 허리를 펴려고 잠깐 누웠다. 누워서 몸을 푸니까 순간 잠이 들었다. 이때 선연하게 한 장면이 보였다. 한 제자가 내 곁에 누웠는데, 나와 같은 방향으로 대칭으로 누워 있었다. 이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여자의 옆자리에 자리를 깔아 놓고서 나갔다. 내가 그 제자를 잡아당기면서 “내가 꼭 껴안고 자게 이리 와.” 했다. 그러니 그 제자는 “조금 있으면 아까 그 남자가 들어와서 안 돼요.” 했다. 나는 “의식하면 아무것도 못 해.” 하면서, 그 제자를 잡아당겨 내 옆에 눕게 하고 안으려다가 꿈에서 깼다. 깨고 나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쉬운 꿈만 꾸었다. 기도하면서 성자께 물어보니, 말씀하시기를 “그 제자는 나 성자를 비유하여 보인 것이다. 내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20분을 채우지 못하여 끝까지 못 한 것이 나를 가까이하다가 만 것 같은 입장과 상황임을 꿈으로 계시하여 보여 준 것이다.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한 그 남자는 네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이다. ‘기도 끝’이 전체 상황을 좌우한다.” 하셨다. 그래서 꿈속에서 못다 한 사랑을 하기 위해 생시에 내 육으로 기도하며 다시 성자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잠언의 계시를 받았다.

54. 밤에 꿈속에서 아쉽게 못 한 것은 낮에 생시에 기도로 주와 대화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와 함께하면 된다. 또 낮에 생시에 아쉽게 못 한 것은 기도하고 밤에 꿈속에서 하면 된다.

55. 낮에 기회를 놓치면 밤에 혼의 세계에서 하고, 밤에 혼의 세계에서 기회를 놓친 것은 낮에 육의 세계에서 하면 된다. / 그러니 혼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혼체에 대해서 알고 매일 행하여라. 그리고 육의 것도 배우고 육체로도 행하여라.

56. 성자 주님은 “네가 나와 사랑하지 못한 것을 잠언의 말씀으로 대신했으니, 사랑한 것이 됐다.” 하셨다. 말씀은 성자이시다. 말씀은 성자의 몸이다.

57. 꿈속의 혼체의 삶은 꿈 계시다.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맛있듯이, 꿈 계시를 풀어야 꿀맛이다.

58. 낮에 육계에서도 주와 관련하여 은밀히 일어난 것도 풀어야 도움이고 유익이다.

<2013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59. 왜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서, ‘합당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같이 하셨는지 따르는 제자들이 모르면, 입맛이 없을 때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낮이 나갔을 때 행동하는 것과 같다.

60. 선생이 무엇을 시킬 때는 그 일을 맡긴 당사자에게도 답을 안 준다. 첫째, 본인이 실천하고 둘째, 끝까지 순종하면서 봐야 깨닫고 답을 받기 때문이다.

61. 본인이 행하기 전에는 왜 이같이 일을 시키는지, 하나님도 성자도 분체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 실천하는 자만 깨닫고 알도록 하셨다. 이것이 축복이다.

62. 잠언도 오늘 못 한 것을 기어이 실천하니, 실천한 차원만큼 받았다.

63. 실천도 안 했는데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

64. 실천자만 축복을 받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된다.

65. 실천하지 않고, 끝까지 보지 않고 이유를 다는 미련한 자들이 많다. 실천하여라. 그리고 끝까지 보아라. 그러면 표적을 보게 된다.

66. 천국도 행한 만큼만 가게 된다. 끝까지 하면, 완성되어 완성된 세계로 가게 된다.

67. 성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영계를 모르면 소경이다. 눈 뜬 자는 소경이 누구인지 바로 안다.

68. 눈 뜬 자라도 모든 것에 다 눈 뜬 자가 아니다. 어떤 것에는 눈을 떴고, 어떤 것에는 눈을 못 떴다.

69. 행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희망만 가졌지, 눈을 못 뜬 자다. 믿고 행해야 눈이 떠진다.

70. 눈을 뜨지 못한 만큼 사탄이 역사하고 방해하여 자기 마음을 같이 내세우게 한다.

71. 눈 뜬 자는 소경을 피해서 눈 뜬 자와 같이 행한다.

72. 소경이 후에 눈을 떠서 보고, 그제야 깨달는다.

73. 성자께서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시니, ‘깨달아야’ 된다. 지식으로만 알지 말아라. ‘깨달아라!’

74. 마음·정신·생각이 깨어 있어야 깨달는다. 모르면 소경이다.

75. 눈 뜬 자만 알고 행하고 끝난다.

76. 소경은 손으로 더듬어서 느끼고 “이것이 아닌데?” 하며 감각으로만 말한다.

77. 눈 뜬 자는 확실히 눈으로 보고 알고 행한다.

78. 이 시대 섭리역사는 시대 말씀에 눈을 뜨고 성자와 그 보낸 자와 함께 행한다. 기성은 시대 말씀을 못 들어서 몰라서 눈을 못 떴고, 또 전해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니 눈이 안 떠졌다.

79. 소경은 소경끼리 가고, 눈 뜬 자는 눈 뜬 자끼리 간다. ‘스스로의 행위’가 서로 쪼개지게 한다.

80. 오늘도 성자에게 내 혼체에게 계시한 것을 물어보고 계시를 풀었기에 눈을 떠서 이 깊은 잠언을 받은 것이다. (혼체에 대한 계시는 어제 화요일 잠언으로 나갔습니다. 월요일 잠언부터 오늘 수요일 잠언까지 하나로 이어진 잠언인데, 새벽에는 시간상 쪼개서 나갈 수밖에 없으니, 꼭 이어서 봐야 합니다. 다른 날 새벽 잠언들도 번호가 이어진 것은 하나의 잠언이니, 모두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81. 만일 지도자가 오늘 못 깨달으면,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못하여 이쪽 면에서 모두 소경이 되게 한다.

82. 성자 분체도, 분체의 대상들도 밤에나 낮에나 성자에게 계시를 받고 꼭 물어보고 행하여 따르는 자들이 소경이 되지 않게 하여라.

83. 신부가 소경이면 신랑은 안타까워서 너무 고민한다.

84. 눈을 뜨면 더러운 것을 치우고 청소하여 육의 세계도 깨끗해지고, 심령의 세계도 깨끗해진다.

85. 육이 선악 간에 상하좌우 사리의 눈을 떠서 행하고, 혼체도 눈을 떠서 행해야 된다.

86. 눈을 뜨고 가면 얼마나 빨리 가고, 얼마나 일도 엄청나게 하겠느냐.

87. 자기가 눈을 뜨고 행한 것과 소경인 상태에서 행했을 때를 비교해 보아라.

88. 영으로 생각하고 할 것을 육으로 생각하고 하는 자가 소경이요, 육으로 생각하고 할 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하는 자가 소경이다. ‘판단, 분별, 그리고 실천’이다.

89. 잠언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 소경이 눈을 뜬 것이다.

90. 어느 때는 꿈에 자기가 미련하게 행하거나, 혹은 지혜롭게 행한다. 이때 성자는 자기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시에 그와 같이 미련하게, 혹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여 주시며, 그 혼과 영도 그러하다고 보여 주시기도 한다.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미련하게 행한 것은 “내 모순인가?” 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지혜롭게 행한 것은 “의아하다.” 하면서 기뻐하기도 한다. 주께 물어라.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의 방향은 생각이다.

2. 생각이 하나 났을 때 집중된 것이다.

3. 기도를 깊이 진정으로 해야 생각이 집중된다.

4. 자기 몸으로 행하면서 육과 같이 일할 때 생각이 집중된다.

5. 배구할 때나, 탁구 칠 때나, 글을 쓸 때나, 음식을 만들 때 각종의 것을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행할 때 생각이 집중된다.

6. 생각이 집중되어 꽃히면 요동이 없고, 그 세계를 꿰뚫어 보기도 한다.

7. 생각이 꽃힌 곳이 정신의 영계인 혼의 세계다.
8. 생각이 꽃혀야 생각이 혼과 일체 되어서 성자와 교통하고, 지상에서도 혼의 세계에서도 혼과 통하고 혼을 보게 된다.
9. '뇌'라는 도구를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으로 자기 뇌를 잡고 다스려야 된다.
10. 뇌를 '생각'으로 지시하고 다스려라. 뇌도 손발과 같은 도구다. 육체다.
11. 도구는 안 쓰면 가만히 있다. 뇌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하게 그냥 놔두지 말고, 생각과 마음으로 뇌에게 시키고 지시하며 행해야 된다.
12.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13. 생각을 놀리면 뇌를 놀리는 것이다.
14. 생각해야 뇌가 제 기능을 하고 일한다.
15. 뇌가 일을 해야 된다. 할 일이 많다. 육체는 피곤해도 뇌는 육체에 속해 있지만 정신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육에 비해 안 피곤하다.
16. 같은 원리, 같은 이치다. 성자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지구 세상의 모든 존재물과 사람에 대해서까지 수십억 개를 깨닫고 행하여라.
17.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쓸 줄 알아야 된다. '몸'을 쓸 줄 알아야 된다. '혼'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영'을 쓸 줄 알아야 된다.
18. 작게도 쓸 줄 알고, 크게도 쓸 줄 알아라.
19. 생각이 유능하고, 행동도 유능하여라.
20. 바보나 원시인은 남이 수준 높은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반대하고 악평한다.
21.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그리고 그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행함으로 그 차원에 속해서 살아라.
22. 농사를 지어 놓고서 자기만 먹고 남으니, 산같이 쌓인 것을 그냥 썩힌다. 그러지 말고 시장에 갔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새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궁을 꾸미고 살아라.
23. 인생들이 겨우 자기 삶에서 끝나니 안타깝다.
24. 성자와 함께 행하여라!
25. 미련한 자는 성적(性的)으로 행하며 육체의 쾌락으로 풀고, 술 담배로 푼다. 그리고 심판받아 지금껏 세운 공적을 불사른다.
26. 저마다 못 하면, 뼈를 깎고 살을 깎는 고통을 당하면서 네 영혼을 구해야 된다. 못 구하면 지옥 흑암 세계에서 산다.

27.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여 자기가 고통을 겪고 축복 길을 벗어나서 고통 길로 가게 된다.

28. 세상 인생들은 진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기에 인생들이 안 될 때는 진짜 성삼위가 걱정하시고 고통을 겪으신다.

29. 그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니면 고통을 안 겪고 속도 안 상한다. 하지만 자기 것이 되면, 그가 잘못된 만큼 속상하고 고통을 겪는다.

30.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너무 많고 많다.

31. 천국으로 가는 영은 아주 소수다. 대부분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육으로 끝나고, 영은 사망으로 간다.

32. 하나님이 좋게 예정해 놓고 도우셔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33. 부모가 낳아 주면, 자기가 행하는 것이다.

34. 인간이 행하는 삶이다. 전능자와 함께 사는 삶이다.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깊은 잠언

1. 사람이 '기술'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자료'가 없으면, 목적을 성사할 수 없다.

2. 사람이 '몸'이라는 기구가 있어도 '생각'이라는 자료가 없으면, 생각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

3. 사람의 몸은 기구다. 생각은 자료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4. 사람이 '뇌의 생각, 마음의 생각'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몸'이라는 기구로 행해야 기쁨과 희망이 작동되어 자극을 받으며 좋은 느낌을 받고 보람을 누리게 된다.

5. 남녀가 있는데, '몸'이 있어도 '생각'이라는 '사랑의 자료'가 있어야 몸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여 삶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쁘게된다->기뻐하게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주체로 놓고서 자기 몸이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라는 '사랑의 자료'를 가지고 삼위일체와 같이 행해야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고, 사랑이 폭발되고, 영적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솟아나게 된다.

7. 자신이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이루는 자료는 온몸에 배선되어 있다. 뇌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생각'이라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몸'이라는 기구만 행하면, 몸만 피곤하다. 생각이 자료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육적 생각, 영적 생각 등 생각은 다양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장 중요하다. '생각'으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의와 죄가 좌우된다.

8. 생각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려면, 육적 생각보다 영적 생각을 해야 된다. 육적 생각보다 깊은 생각은 혼적 생각이고, 그보다 더 깊은 생각은 영적 생각이다. 영적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늘 생각하고 사랑하며 그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합당한 생각이다.

9. '생각의 자료'가 없는데 행동만 하면, 그로 인한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고, 오히려 행동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10. 사람이 기쁨을 주려 하는 '생각'이 없는데, 몸만 기쁨을 주기 위해 행동해 보아라. 오히려 몸이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

11.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목적인 바가 무엇인지 배우고 알고 나서, 그 생각을 자기 뇌와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고, 몸으로 실천해 보아라. 그러면 몸도 마음도 기쁨에 흥분되어 살 것이다. 이는 아주 좋고 깨끗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 악의 생각은 생각할수록 악을 낳는다. 병든 정자와 난자로는 불구자만 낳는 것과 같다.

1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향해 목적인 바를 늘 생각하며 그 생각의 자료를 충만하게 하고, 매일 상대체가 되는 인간들과 함께 그 생각을 실천하신다. 특히 삼위일체를 극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신다. 그리함으로 매일 기쁨을 누리신다.

13. ‘생각’이라는 자료가 없이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같이 행해도 마치 목적 없이 길을 가는 자와 같아서 피곤하고 고통스럽다.

14. 사람이 입안에 맛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어도 ‘음식’이라는 자료를 입에 넣지 않으면, 깨물어도 맛을 못 느낀다. ‘음식’이라는 자료를 입에 넣고 작동해야 입안에서 맛을 느끼며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다. 빈 마음, 빈 생각으로는 ‘인생의 맛’도 못 느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맛’도 못 느끼고, ‘하늘의 사랑의 맛’도 못 느끼고, ‘천국의 맛’도 못 느낀다. 뇌, 곧 마음애다가 성자가 원하시는 ‘생각’이라는 자료를 넣고 작동하여 행해야 정신 세포와 육적 신경이 자극되어 맛과 흥분을 느낀다. 맛은 그 생각대로 느끼게 된다.

15. 특별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행동해도 맛을 못 느끼고 산다. 이는 빈 방아만 돌리는 것과 같다. 생각이 자료다. (생각이 없는 자에게 주의 일을 시키고, 전도를 시키고, 관리를 시키면 피곤하다며 싫어한다.)

16. 어떤 생각을 하고 몸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맛을 느끼고, 깨닫고, 보람을 누린다. 성자가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몸으로, 혼으로 행하여라.

17. 성적인 세계에서만 사랑을 느끼고 마음과 육의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다. 뇌에 ‘생각’자료를 넣고 몸으로 가동하면, 온몸과 마음이 쾌감을 느끼고 혼과 영도 희열에 찬다.

18.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섭리해 오신 것을 생각하며, 그 생각의 자료를 뇌에다 넣고 깨달으면서 행해 보아라. 마음은 물론 혼과 영까지 기쁨과 쾌감을 느낀다.

19.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의 자료를 뇌에 넣고 몸을 작동해 보아라. ‘작품 만들기. 좋은 작품 구하기. 불쌍한 자들 돕기. 의를 행하기.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성자와 함께 행하기.’ 등 좋은 생각의 자료를 뇌에 넣고 몸을 작동해 보아라. 그로 인해 마음과 몸뿐 아니라 혼과 영까지 극치의 기쁨과 쾌락을 얻게 된다. / 성적 사랑은 육에 속하여 그 자료가 너무 적고 단순하다. 생각의 자료가 하늘에 속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어야 자료가 많고 오래 간다.

20. 남녀의 사랑도 사랑의 자료가 떨어지면 한계선에서 끝난다. 주와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듣고 연속하여 각종 생각의 자료를 뇌에 넣고 몸으로 행해야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하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게 된다.

21. 사람이 늙으면 정력의 자료가 떨어져서 사랑의 활동을 해도 못 느낀다. / 그러나 신앙은 정신세계다. 고로 늙어도 ‘신앙의 자료’만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늘 행하기만 하면, 몸도 마음도 삶의 보람을 누리고 사랑을 느끼면서 산다. / ‘신앙의 자료’는 자기가 받은 사명이다. 주께 받은 생각이다. 기도다. 신부에게는 절대적인 성자 사랑이 자료다. 이 자료들을 뇌에 꼭 채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상대로 삼고 행하여라.

22. 마음에 자료 없이 행하면, 아무리 행해도 못 느낀다.

23. ‘시대 말씀’이 자료다. ‘분체’가 보이는 구원자로서 자료다. 고로 늘 그와 일체 되어 그 생각과 시대 말씀을 자기 뇌에 넣어서 행해야 시대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는 영적 세계에까지 이어지는 자료다.

24. ‘성자’가 우리 육과 혼과 영의 자료다. 입안의 진수성찬이다. 고로 깨물고 씹을수록 인생의 맛, 영혼의 맛을 느낀

다. 성자와 함께 행해야 삶의 맛, 사랑의 맛을 느낀다.

25. 지상의 물질 사랑, 세상 사랑 등 각종 육적 생각의 자료를 넣고 몸으로 작동하면, 육적인 것만 느끼고 쾌락을 느껴도 허무하다. 이는 모래사막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갈증을 느끼며 물을 마시는 격이다.

26. ‘영적인 자료’를 뇌에 넣고 몸으로 행해야 사막을 벗어나서 영원히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물에 몸을 담그고 사는 격과 같다.

27. 세상 자료는 육적 자료라서 일순간이다. 고로 곧 한계에 처하여 허무, 허탈, 공허, 후유증에 처하게 된다.

28. ‘육적 생각의 자료’를 가지고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을 받지 못한다. 이는 살로 살을 채우는 격이라서 일어나지 못한다. 뼈를 튼튼하게 하여 그 위에 살을 채워야 튼튼하다. ‘영적 생각의 자료’가 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림 2페이지)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잠언2>

1. ‘생각’이 확실해야 형체를 이루게 된다. 그래야 혼체가 잘 보이게 된다.

2. 눈도 뭉쳐야 형체를 이루듯이, 생각도 어떤 것을 놓고 확실하게 뭉쳐야 형체를 이루게 된다.

3. ‘생각’은 마치 구름과 같다. 구름은 뭉쳐지지 않으면 형체가 흐릿하지만, 뭉쳐지면 형체가 생긴다. 이와 같이 마음·정신·생각도 뭉쳐야 형체를 이루게 된다.

4. 흐리멍덩한 생각은 형체가 없는 구름과 같다. 정신일도, 마음일도, 생각일도 해야 마음·정신·생각의 형체인 ‘혼체’가 온전히 형성된다.

5. 마음·정신·생각이 확실해야 ‘육의 행실’도 확실한 형체를 이루어서 확실히 행하고 만들게 된다. 육의 행실이 확실하니, 그에 따라 ‘영체’도 빨리 변화되고 형성된다.

6. 마음·정신·생각이 확실해야 꿈에서 혼체가 확실한 형체를 이루어 활동한다.

7. ‘생각의 강약대로’ 형체를 이룬다.

8. 마음·정신·생각을 확실히 집중해야 낮에도 ‘혼체’가 형체를 이루어 영적인 것들도 확실히 보고 자기 육에게 전달하여 행하게 하고, 밤에도 ‘혼체’가 형체를 이루어 꿈에서 확실히 활동하며 영의 것을 많이 보고 행한다.

9. 생각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룬다.

10. 기도할 때도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할 때 먼 곳에 있는 것이 보이듯이 영의 것들이 확실히 보인다. 생각 실상대로 보인다.

11. 생각이 극적인 차원까지 가야만 생각이 제대로 형체를 이루어 볼 것을 보게 된다.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또렷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다.

12. 잠언을 쓸 때도, 계시를 받을 때도, 설교를 쓸 때도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내용이 흐릿하다. 생각이 확실한 단계에 갔을 때, 내용을 확실하게 받는다.

13. ‘생각’은 처음에는 대지에 내리는 눈과 같이 형체가 없다. 그러나 눈도 뭉치면 형체가 이루어지듯이, 생각도 어떤 것을 구상하고 뭉치면 형체가 이루어진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여 구상해야 현실화된다.

14. 먼저는 머리에서 생각을 구상한다. 그 생각이 정신세계에서 뭉쳐서 형체를 이룬다. 그것을 육으로 실천하면, 그 생각이 손으로 만져지는 실체가 된다.
15. 생각으로 창조된다.
16. 생각으로 실상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17. 생각으로 일을 한다. 곧 정신세계의 일이다.
18. 마음·정신·생각은 ‘영’에 속한 존재로서 일한다.
19.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는 혼체다. 이 혼체는 낮에는 자기 육체를 쓰고 육적 세계에서 일하고, 밤에 육신이 잘 때는 혼체가 육신을 쓰고서 영적 세계인 혼계에서 보고 듣고 일한다.
20. 인간은 육체 - 혼체 - 영체 세 존재로 구성되어 살아간다. <육체>는 보이는 물질세계에서 살아간다. <혼체>는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도 살고, 육적 세계에서도 육신 쓰고 살아간다. <영체>는 신의 존재와 같아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21. 육체 - 혼체 - 영체는 부부 일체보다도 더 일체 되어 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고, 살과 뼈와 신경같이 완전히 붙어서 살아간다. 그렇게 나무와 잎과 열매와 뿌리같이 수수 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
22. 저마다 ‘혼체’가 존재하고 있어도 배워서 알아야 쓸 수 있다. 모르면 원시인같이 살아간다. 알고 발달될 때까지 무의식중에 산다.
23. 사람들이 연구하여 전자 제품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근본의 원리를 모르면, 그저 그냥 사용하기만 한다. 왜 그같이 만들어졌는지 근본 원리를 알아야 더 잘 사용하게 된다. / 이와 같이 하 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의 육체 - 마음·정신·생각 - 혼체 - 영체를 배워서 근본을 알고 사용하면, 사용법을 알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24. 인간은 살면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한다.
25. ‘마음·정신·생각’을 쓸 줄 모르고 ‘혼체’를 쓸 줄 모르면, 안 보이는 영체도 쓸 줄 모르고, 보이는 육체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 이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혼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26. 육체보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혼체’가 100배나 더 귀하고 중요하다. 혼체보다 그 위에 있는 ‘영체’가 1억만 배나 더 귀하고 중요하다. /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고 ‘마음’만을 위해 살아간다. 결국 자기 영혼을 음부 사망과 지옥에 보내 놓고서, 그 육은 시체가 되어 땅속으로 들어가고 끝난다. 이는 마치 개밥을 먹으려다가 개한테 물려 죽는 격이다.
27.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구원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혼체와 영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저 ‘육체’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다가 결국 육은 시체가 되어 끝난다. 이는 마치 영원히 살 자기 영체를 자기가 목 졸라 죽인 격이다. 미련한 인생들은 거의 육만을 위해서 산다.
28. 육체에 속한 마음·정신·생각, 그리고 혼체를 가지고서 자기 영체를 제대로 만들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라. 그러므로 영원히 살게 하여라. 육체만을 위해서 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 봤자 80~90년이다. 이때가 되면 늙어서, 살았어도 70% 죽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29. 학문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가 보내신 ‘성자’에 대해서 배우고, 성자가 자기 육으로 삼고 인

생을 구원하는 ‘땅의 구원자’에 대해서 배우고,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자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30. 인생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에 대해서 100% 모르고 살아간다. 1%씩 자꾸 배우고 행하고 살아서 육도 혼도 영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며 살아라!

31. 마음·정신·생각이 하나 되어 ‘혼체’를 형성하고, 그 혼체가 자기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아야 된다. 모두 다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다.

32. 육체의 주인은 마음·정신·생각이다.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여 혼체를 온전히 형성하여, 혼체가 육체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영체도 변화되어 온전히 형성된다.

33. 부지런함, 열심, 노력으로 성자 주님과 같이 하는 삶이다.

34. 혼자 책임분담 해서 할 것이 있고, 성자 주님과 같이 할 것이 있다.

35. 성자는 분체와 일체 되었다. 둘이 일체 되어 인간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36. 전능하신 성자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동등 격으로 존재한다. 성자는 마치 사람의 몸에서 ‘영체’와 같은 입장이 라면, 성자가 육으로 쓰는 분체는 사람의 몸에서 ‘마음·정신·생각’, 그리고 ‘혼체’와 같은 입장이다. 성자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자를 한 사람 뽑아서 그를 표상 중심자, 곧 구원자로 쓰신다. 반드시 성자가 주인이 되어서 분체를 손발로 쓰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육의 마음·정신·생각, 혼, 영은 일체다. 그러니 성자와 분체를 일체로 보고, 늘 부르고 찾고 간구하며 하나 되어라. 자기를 중심하는 자는 영도 육도 구원의 선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 항상 분체와 교통이다. 그래야 나무에 진액이 빨리 올라가듯 하여 열매가 충실하게 된다. 분체를 보는 것이 성자를 육신으로 본 것이다. 분체가 살아 있을 때만 성자를 육신으로 볼 수 있지, 분체가 죽으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육적으로는 못 본다. 분체는 성약 1000년 동안 구원자다.

37. 아는 만큼만, 행한 만큼만 이루어진다.

38. ‘마음’도 집중할 때 강해지고, ‘몸’도 쓸 때 강해진다.

39. 인간의 삶은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실존화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실존시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40. 매일 항상 마음·정신·생각의 운전대를 꼭 쥐고 살아야 된다.

41.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항상 자극하지 않으면, 육신이 잠을 자듯 마음·정신·생각도 잠을 잔다. 잠잔다는 것은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무의식중에 보낸다는 것이다. 죽은 삶이라는 것이다.

42. 마음·정신·생각이 주인이 되어 마음을 다스려라. 그로 인해 몸도 다스려라. 주의 생각이 아니면 죽은 생각이다.

43. 마음·정신·생각은 마치 보이는 육의 몸과 같아서 항상 편한 것을 좋아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 것만 좋아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싫어한다. 이를 고치고 버리고 다시 온전히 만들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44.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고쳐 놓고, 자기 몸의 행실도 고쳐 놓고 행하면 완전하다. 마치 한 지역을 개발하여 쓰듯이 편하고 천국이다. 그에 따라 영도 그와 같이 변화되어 온전하게 쓰여지게 된다.

45. 마음·정신·생각도, 혼도, 영도 개발하여 쓰면 10000배나 귀히 쓴다. 개발하여 멋있게 쓰는 자가 되어라. 월명동도 개발하지 않았으면 버릴 땅이다. 마음·정신·생각을 개발하고 혼과 영을 개발하여라. 개발하지 않으면 쓸모없어서 버리

게 된다.

46.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을 완전히 개발하고 고치고 만들어 쓰는 자가 '이 시대 성자의 신부'다. 아직도 미완성된 자들이 너무 많다. 열심히 하면 몇 달 만에도 개발하고 완성하는데 자기가 안 한다. 혹은 하다가 만다. 자기 마음을 다 스리고 주관하여라. 지금 휴거가 진행 중이다. 무섭게 행하여라. 월명동 자연성전을 개발하여 만들듯이, 저마다 '육 성전, 마음 성전, 영 성전'을 만들어 신부로 단장하여라.

47. 개발하여 없앨 것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 개발한 길을 쓰면서, 차원 높게 살게 된다.

48.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어라! 이것이 인생 최고의 일이다. 이는 빌딩 100개를 짓는 것보다 더 큰일을 하는 것이다.

49. 자기를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자기 육을 만들고,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만들고 자기 '혼'을 온전히 형성시켜야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50. 매일 자기 만들기다! 이것이 영원히 남아지는 일이며, 영원히 사는 길이다.

51. 세상의 썩은 양식만 먹으면서 육체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들의 세계는 미련한 짐승 같은 세계다.

52. 마음·정신·생각이 산 자가 자기를 다스린다. 마음·정신·생각이 죽은 자는 자기를 못 다스린다.

53. 산 자가 죽은 자를 다스리고 이끌어 간다.

54. 강한 마음, 강한 다스림이다.

55. '육체'는 하나의 기구다. '마음·정신·생각'이 주인이다. 고로 마음·정신·생각을 다스리면 쉽다. 자기 마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느냐. 마음을 만들어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으니, 마음을 만들고 삼위일체와 함께하면 다 할 수 있다.

56. 기도하여 삼위의 신이 함께하게 하여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다스리게 된다.

57.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육도 혼도 영도 사망에서 사는 몸이 된다.

58. 사탄은 방해하여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살게 한다. 기도하여 성자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사탄을 멸하여라! 사탄은 어둠이라서 빛을 밝히면 사라진다. 선이 빛이다. 하나님과 성자가 빛이다. 성자가 보낸 자가 빛이다. 그 이름으로 사탄을 다스려라!

59. 사탄, 마귀, 귀신은 어차피 지옥으로 판결받았기에 아예 선한 것은 일점일획도 행하려 하지 않는다. 고로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악한 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유혹한다. 악한 자들도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았기에 갖은 악질적인 일을 한다. 모두 깨어 기도하자!

60. 자기를 이기면 사탄, 마귀, 귀신을 다 이긴다.

61. 자기를 이기는 것은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성자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다.

62. 매일 자기를 이겨야 된다. 자기 생각을 통해서 사탄도 개입한다. 주와 함께 일점일획도 완전하게 하여라. 그러면 100% 완전한 의인이다.

63. 세상의 썩은 문화와 노래와 놀이와 생활들은 자기 마음을 썩게 하는 누룩과 같다. 아편과 같다. 천국에 가는 데 천

적이다. 지옥에 가는 데 짝이며, 에너지이며, 한 쌍의 커플이다. 고로 썩은 문화와 노래와 놀이와 생활을 하는 자들은 마귀의 몸종으로서 결국 괴물 마귀와 같이 살아야 된다. / 영계에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해 줬으니, 알고 살아라.

64. 온종일 세상 썩은 노랫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루 종일 귀를 막고 살았다. 그 노래는 10억 년을 들어도 영혼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영혼 구원의 천적이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65. 세상 모든 노래는 사랑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한이 맺혀서 가사를 만들고 곡을 붙인 소리다. 실패의 노래다. 지상의 지옥 소리다.

66. 누구든지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못 다스리면, 인생 망한다. 마음·정신·생각을 육적으로 다스리면 육이 형통하고, 영적으로 다스리면 영이 형통한다.

67. 자기 마음·정신·생각은 자기 혼자 못 다스린다. 기도하고 절대자 성자와 땅의 구원자와 함께 다스려야 된다.

68. 매일 매시간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주를 불러라! 마음에 헛된 잡생각을 없애고 온전하게 다스려라!

69.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라! 그리고 네 육신을 가지고 그 생각대로 매일 행하여라!

70. 매일 승리는 인생 평생 승리다.

71. 정신의 영웅이 되어라! 잡념을 없애고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여라! 주의 생각을 가져라! 그리고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72. 세상 속에서 살아도 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주 옆에 놓고서 행하여라!

73. 못된 마음, 못된 행위다.

74. 못된 생각, 못된 악 쪽 행위다.

75. 못된 정신, 불의 쪽 행위다.

76.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온전하여라. 매일 점검하여라. 자기가 자기를 즉시즉시 제일 잘 파악하고 안다.

77. 뼈를 교정하듯, 마음·정신·생각과 행위를 매시간 교정하여라.

78. 생각이 육성으로 가느냐, 혼 쪽과 영 쪽으로 가서 영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육적 승리냐, 영적 승리냐가 좌우된다.

79. 생각만 영적인 편으로 가면, 항상 이긴다.

80. 생각의 실상으로 좌우된다. (그림)

81. 우주 만물도 인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생각의 실존체다.

82. 우주 만물도 인간도 삼위 생각의 실존체인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실존체로 알고 산다.

83. 만든 자의 것이다.

84.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팔아먹지 않으셨다. 다 그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주 만물도 사람도 자기 것으

로 알고 살아가면서, 사탄과 세상에게 자기 몸을 팔아 버리고 그것의 종이 되어 산다.

85. '우주 만물'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생각의 실존체다. 만물은 만물로서만 만족하고 사랑을 받고 보람을 누리신다.

86.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생각의 최고 실존체다. 고로 인간이 삼위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사랑하며 살 때, 삼위는 최고로 보람을 누리고 기뻐하고 만족하신다.

87. '육체'보다 '마음·정신·생각, 혼체'가 더 귀하다. 근본은 '영체'다.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영원히 보람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88. '생각'은 미인이 될 수도 있고, 흉하게 될 수도 있다. 생각 실상 세계다. (내가 생각을 집중하여 이 잠언을 쓸 때는 내 생각이 실체가 되어 미인으로 보이며 내 옆에 왔다. 순간순간 내가 다른 생각을 할 때는 그 미인이 내 옆을 지나서 다른 데로 갔다.)

89. 성자 본체와 분체는 손을 안 대고도 세상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좌익 사상을 가진 자들을 질그릇같이 모두 다 깨부순다. '기도'로 전능자에게 간구하여 '철장 같은 말씀'으로 깨부순다. 사탄 마귀의 몸종이 되어 사는 자들의 그 생각을 다 깨부순다.

90. 겨울철에 눈을 뭉쳐 놓지 않으면 눈이 바로 녹아서 없어진다. 그러나 뭉쳐 놓으면 형체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마음·정신·생각을 뭉쳐 놔야 육을 쓰고 행한다.

91. 힘을 집중하는 쪽으로 몸이 다 가듯이, 생각을 집중하는 쪽으로 육체와 혼체와 영체가 다 합해진다.

92. 생각이 다 합해졌을 때, 그때 성자 주님을 생각하거나 영적인 생각을 해 보아라. 그러면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영감이 오고, 성자와 교통이 되어 계시를 받기도 한다.

93. 생각이 안 잡히면 필요한 일을 감행하여라. 그러면 몸을 따라서 생각이 집중되어 마음과 생각을 잡게 된다.

94. 몸이 행하는 대로 마음·정신·생각이 가게 되고 쏠리게 된다.

95. 생각 구상 실천이다.

96.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성자 본체와 분체를 100번, 200번, 300번 불러 봐라. 그러면 뇌의 구조에 따라서 생각이 하나로 집중된다. 그때 기도하여라. 그러면 정신이 집중되어 하나하나 생각날 것이다. 혼자 하지 말고, 성자가 옆에 있으니 대화하고 이야기하여라. 자기에 관한 것들을 진정 이야기하고, 그 후에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기도하여라.

97. 평소에 정신 훈련을 해 놓으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나 환난과 어려움이 앞에 닥쳐올 때, 높은 곳도 낮게 보여 뛰어내리게 한다.

98. 평소에 정신을 집중하는 데 달렸다.

99. 저마다 7일, 21일, 한 달을 정해 놓고 정신을 집중하여 정신 훈련을 하여라.

100. 산을 처음 타면 무섭고 겁나고 가기 싫다. 그러나 높은 산을 몇 번 타면 마치 낮은 산을 타듯이 웃으면서 오르게 되고, 악산도 타 보고 싶어진다. 환난과 핍박도 처음 받으면 겁나고 두렵다. 그러나 연단받으면 괜찮다.

101. 환난으로 인한 연단과 단련이다.

102. 자기 잠재 능력이 많은데 개발하지 않음으로 약한 정신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니 힘든 것이다. 힘들면 말해라. 내가 손잡고 같이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 줄 테니 행하여라. 여기서도 내가 기도하면, 내 영이 가서 네 손을 잡고 돕는다.

103. 오늘 잠언들은 성자 주님께 정신세계와 혼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 때, 성자가 주신 계시다. 성자 주님은 “1번에서 102번까지 잠언의 계시를 열 번 읽고 행하면, 모두 자신 있게 천국에 간다.” 하셨다.

104. 말씀이 얼마나 한 사람을 완전하게 구원하는지, 밤낮 연구하여 영계에 가서 보고 와서 육계와 대조해 본다. 잠언의 계시들을 그냥 듣기만 하려면 아예 듣지 말아라. 아깝다. 값없이 듣는 자는 천국 문에 와도 받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말씀을 귀히 여겨라. 괴물들이 앞에 있을 때의 총같이 귀히 여겨라.

105. 어떤 것은 한 잠언, 한 진리를 받는 데 50년이 걸렸다.

106.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에 지옥으로 간 것이다.

107. 수백 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은 불과 20~30세에 불과했다. 태어난 아이 열 명 중 세 명은 한 살도 되기 전에 사망했고, 절반 정도가 열 살 이전에 사망했다. 그 이유는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이질, 설사, 폐렴, 패혈증 같은 질병 때문이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 기껏해야 귀신의 저주이거나 나쁜 공기에 의한 것이라고 짐작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후에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이 ‘미생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에드워드 제너’는 천연두를 막기 위해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했다. 그 뒤에 ‘루이 파스퇴르’가 모든 전염병이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예방접종의 원리를 알아내어,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지 알아냈다. 그리고 ‘알렉산더 플레밍’의 연구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연구되었고, ‘플로리’와 ‘체인’에 의해 <페니실린>이 상용화되었다. 페니실린을 연구하여 주사로 맞으니,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진리도 그러하다.

108. 마음·정신·생각이 무엇인지, 육계에서는 눈으로 안 보인다. 영계를 봐라. 그럼 보인다. 마음·정신·생각을 영계로 보면 ‘혼체’다. 혼체를 보고 영체를 알아라. 혼체를 보고 영을 내다봐라.

109. 마음·정신·생각이 낮에는 ‘육’을 통해서 보이고, 밤에는 ‘혼’을 통해서 보인다. 깨달아라. 저마다 혼체가 있으니 배워라.

110. ‘혼체’에 대해서 알면, 인생 20~25년을 더 사는 입장이 된다. 혼체에 대해서 알아라. 고로 낮에는 육계에서 살며 사용하고, 밤에는 혼계에서 살며 사용하여라.

111. 혼의 세계는 영의 세계다. 밤에 영의 세계를 보고서 낮에는 육의 세계에서 살면, 제대로 알고 살게 된다. 성자는 혼의 세계에서는 만나 보는 것이 가능하다. 성자는 육이 아닌 영이라서 육의 세계에서는 만나 보기 어렵다. 육의 세계에서는 그 육인 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성자는 영이라서 꿈에 혼의 세계에서는 상징적으로 쉽게 볼 수 있다. 고로 혼체를 알고 사용하라는 것이다.

112. 기도하여 앞날의 계시를 받는 것도 낮에 육의 세계에서보다 혼의 세계에서 훨씬 더 깊이 정확히 보인다. 성자는 낮에는 육체에게 계시하시고, 밤에는 혼체에게 계시하신다.

113. 자세히 보아라. 성자 주님은 신부들에게 각각으로 계시하신다. 심혈을 기울여 배워라.

114. 성자는 세상에 보이게 나타나려면, 그의 육인 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 분체의 육이 살아 있을 때만 가능하다. 분체의 육이 죽으면 성자는 분체의 영을 통해서 나타난다. 나사렛 예수님의 육이 살아 있었을 때 3년 동안만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딱 3년 동안 육으로 나타나셨다. 그 후 신약 2000년 동안은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나타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함을 깨달아라.

115. 예수님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니 “나를 봐라.” 했다. (이 시대도 그렇다. 분체의 육이 살아 있는 당세에만 성자를 육신으로 보여 주는 기간이다. 섭리인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 성자의 영을 본 것과 성자가 육을 통해 보이는 것은 다르다. 모르면 보통으로 알고 대한다. 고로 확실히 알아야 된다.)

<2013년 4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뇌가 어떤 것에 중독되면, 아예 뇌가 그런 쪽으로 되어 버려서 평소에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도 없이 육신이 그냥 그대로 하게 된다.
2. 습관과 버릇이 들어 있는 자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그것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가 편하니 그대로 행하게 된다.
3. 어려운 일도 습관이 되면 평소에 많이 해 버릇해서 어렵지 않게 하게 된다.
4. 나쁜 습관이 든 것은 세뇌가 되어 있어서 뇌가 아예 그렇게 조직되어 있다. 매일 제대로 하는 자의 것을 보고서 절대 배우면서 해야 뇌 조직이 다시 제대로 고쳐진다.
5. 성경의 비유를 그릇되게 문자 그대로 배우고 알고 사는 자는 그 뇌의 조직이 성경의 비유를 풀고 제대로 알고 사는 자의 뇌 조직과 다르다. 고로 올바른 말을 들어도 처음에는 자기 식대로 그대로 들리고 생각된다. 세뇌된 것을 바로 고치려면,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행해야 된다.
6. 구시대 기성인들은 뇌가 이미 기성의 말씀을 들은 대로 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이미 조립된 기계와 같다. 본인이 다시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새롭게 조직해야 된다.
7. 생각이 그릇된 자들은 말할 때도 티가 나고, 행할 때도 티가 난다.
8.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주가 온다는 성경 말씀을 보고, 구름을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아는 자는 하늘을 쳐다봐서 목이 뒤로 젖혀져 있고, 구름을 사람으로 제대로 푼 자들은 땅을 쳐다봐서 정상이다.
9. 사람은 ‘생각’으로 무엇을 얻을 동기를 일으킨다. 고로 ‘생각’을 놀리면 얻지 못한다.
10. 사람이 눈으로 어떤 것을 봐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욕에 갇혀 아무것도 못 봐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생각을 하게 된다.
11. 창조자는 인간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12. 생각이 선한지, 악한지, 창조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처리하신다.
13. 생각을 악하게 해도 죄가 되어 심판받는다.
14. 생각을 선하게 해도 의가 되어 축복을 받는다.
15. 하나님은 생각도 하나의 행위로 보신다.
16. 생각하는 ‘마음 길’이 다르면 ‘인생 길’도 다른 것이다.
17. 보이지 않는 전능자 성자를 어떻게 보여 주겠느냐. 그의 생각과 정신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면서 보여 주는 것이다.

18. 마음을 비워야 자기 희망의 기회가 와서 자기에게 부딪힐 때 알게 된다.

19. 자기 사고(思考), 자기 생각이 마음에 꼭 차서 주장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20. 자기 마음·정신·생각대로 자기 육신의 행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혼체와 영체도 형체를 이루면서 영의 세계에서 존재한다.

21. 육계에서 낮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체와 일체 되어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한다. 밤에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의 형체를 쓰고 초자연적 형체인 혼체로 꿈에서 나타나 그 혼체가 보고 듣고 행하면서 다닌다.

22. (주 편) 내 일인데, 왜 네가 생각하느냐.

23. (주 편) 내 몸이라면, 내 생각으로 행하여라.

24. (주 편) 나와 일체 된 자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25. (주 편) 마음과 몸이 따로 사는 자는 스스로 생각한다.

<2013년 4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악이 선하게 된다 해서 염소가 양같이 되지는 않는다. 양으로서 양같이 선해야 된다.

2. 악인들이 잠깐 목적을 두고 선하게 된 것은 마치 염소가 잠깐 양같이 된 것과 같다. 이는 본성이 있기에 그 본성이 또 나온다.

3. 본래 양인데, 염소 같은 성격으로 변한 양을 본래 양의 성품으로 만들어야 양이라고 인정한다. 하나님도 성자도 의인을 이같이 취급하신다.

4. 같은 시대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당세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 70년, 100년 뒤떨어져서 낮은 차원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 70년, 100년 앞질러 높은 차원으로 산다. <사회 삶의 세계>도 그러하고,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5. 몸은 흥분되어야만 느끼지만, 마음과 생각은 집중해야 느낀다.

6. 도시에서는 낮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 자기가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해야 들린다.

7. 몸도 어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데 집중하면, 흥분되어 예리한 것을 느낀다.

8. 자기 육은 자기 영이 영계에 가는 것을 모른다. 고로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러면 혼체가 영계에서 활동한다. 육체가 할 것을 혼체가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영의 세계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면, 자기 혼체가 영계에 가서 활동하면서 영의 것을 본다. 혼체가 차원 높이 깊이 가면, 자기 영체도 보고, 영계에 있는 영들도 본다. 천국과 낙원과 선영계, 그리고 지옥 등 각종 영의 세계를 본다. 자기 영이 자기 육체를 이탈하여 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 혼체가 활동한다. 자기 혼체와 영체가 일체 되어 육체를 이탈하여 행하기도 하고, 혼체 따로 영체 따로 행하기도 한다.

9. 사람의 몸에는 신경세포가 있다. 신경만 살아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경을 자극하는 '자료'가 있어야 느낀다.

10. 몸에 자료만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신경세포가 살아 있어야 느낀다.

11. 섭리사를 한 지체로 보자. 섭리사에는 <신경세포> 같은 ‘섭리인’이 있다. 또 <핵인 자료> 같은 ‘선생’이 있다. 둘 다 살아 있어야 시대를 느끼고, 기쁨도 희망도 슬픔도 느낀다. <자료>인 ‘선생’만 살아 있고, <신경세포>인 ‘섭리인’이 죽어 있으면 못 느낀다. 또한 <신경세포>인 ‘섭리인’은 살아 있는데, <자료>인 선생이 죽어 있으면 못 느낀다.
12. 예수님 때도 <자료>와 같은 ‘예수님’이 죽으니, <신경세포>와 같은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이 시대를 못 느꼈다. 고로 성령의 역사를 하여 ‘성령’께서 <자료 역할>을 해 주셨다.
13. ‘몸’은 건드리고 자극해야 느끼지만, ‘마음’은 생각해야 느낀다.
14. ‘몸’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하여 찬 것과 더운 것을 못 느낀다. 몸은 자극을 주는 대로 느낀다. 이와 같이 ‘마음’도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못 느끼고 무기력하다. 생각해야 느낀다.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15. 기계나 기구를 보아라.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다. 작동시켜야 움직인다. 이와 같이 ‘몸’은 온종일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있다. ‘마음’도 온종일 가만히 놔두면 빈 마음으로 그대로 있다.
16. ‘몸’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이 되듯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일이 된다.
17.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하게 된다.
18. ‘몸’은 움직이는 것이 일이고,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일이다.
19. ‘몸’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듯이, ‘마음’도 많이 생각하면 일을 한 것이라서 피곤하다.
20. 마음의 일 중에 최고로 피곤한 일이 있다. 걱정·근심·염려되는 일을 당하여 그것을 생각할 때 최고로 피곤하다.
21. <육>은 ‘행함’으로 일을 하지만, <마음>은 ‘생각함’으로 일을 한다.
22. ‘육체의 일’과 ‘정신적인 일’이 있다.
23. ‘몸 가지고 행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고, ‘마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일이다.
24. 어느 때 몸은 가만히 누워서 꿈쩍도 않고, 마음 가지고 생각만 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25. 마음 가지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구상하는 것도 다 일이다.
26. 사람이 생각하는 일을 할 때 뇌를 영상으로 보면, 신경세포가 움직인다.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27. 육신이 일을 하면 몸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듯이, 마음으로 이 일 저 일을 생각할 때 뇌를 영상으로 보면, 신경세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28. 사람은 ‘몸’과 ‘생각’,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을 한다.
29. 가령 글을 쓸 때도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인 손으로 글을 쓴다. 각종 일을 할 때도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으로 같이 일한다.
30. 육체 안에 몸과 마음을 쪼개서 본 것이다.

31. 생시에 육체인 몸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 가령, 시를 구상하여 마음에 외워 놓기도 한다. 어떤 것을 생각하면, 생각나지 않던 것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러다가 육신이 잠을 자면, 마음·생각·정신이 혼체와 일체 되어서 완전한 혼체가 되어 혼계에서 활동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정신세계인 ‘꿈의 세계’라고 불러 왔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 왔다.

32.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의 세계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것도 아니냐? 인간은 육체가 있어도 마음·정신·생각을 빼면 식물인간과 같다. 마치 뇌를 빼놓은 것 같다. 고로 마음·정신·생각이 혼체로 형성되어 활동하는 ‘꿈 세계’는 정말 중요한 세계다. 인간의 근본을 좌우하는 ‘영의 세계’다. 이 세계는 마음·정신·생각이 일체 된 ‘혼체 세계’로서 하나의 영적 세계다. 마음·정신·생각으로 인해 영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단계가 ‘혼체 세계’다. 그 혼체를 통해서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영체 세계’로 가게 된다. 영체 세계란 영의 세계라는 말이다.

33. 겉 세계인 육체 세계와, 속 세계인 마음·정신·생각, 혼체 세계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존재한다. / 육신이 살아 있을 때는 마음·정신·생각이 혼체가 되어 육체와 일체 되어서 존재하다가, 육신이 죽으면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인 혼체가 영체와 일체 되어서 영원히 존재한다.

34. 육체에 마음·정신·생각과 혼체가 없으면 식물인간이다. 이와 같이 영체에도 마음·정신·생각과 혼체가 없으면 식물인간 영체가 된다.

35. 가령 마음·정신·생각이 악하다면, 그 영체도 악하다. 마음·정신·생각이 선하다면, 그 영체도 선하다. 마음·정신·생각이 선하다면, 그 육체의 행위도 선하다.

36. 가령 어떤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절대 사랑하고 그 마음에 인정했다면, 그 혼체도 영체도 그와 같은 처지의 존재가 된다.

37. 창조주는 인간을 <삼위일체 실재체>로 창조하셨다. 보이는 육체 - 안 보이는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 - 영체다.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는 아는데, 안 보이는 혼체와 영체는 모른다. (그림)

38. 사람은 육체 - 혼체 - 영체, 이 세 존재가 하나 되어 각각 존재하면서 산다. 같이 살 때 육체가 행한 대로 혼체와 영체가 변화되고 형성된다. 그러다 때가 되어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는 일체 되어 육체가 살았을 때 행한 대로 형성되어 그에 맞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아간다.

39. 사람들은 ‘꿈의 세계’를 하나의 평범한 꿈의 세계로 칭했지만, 근본은 ‘영의 기본 세계인 혼의 세계’다.

40. ‘혼의 세계’도 하나의 인생 삶의 세계다. 사람이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혼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 두 세계를 살게 된다. 여기서 마음·정신·생각과 혼의 차원을 영적 수준까지 높여서 살아가면,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에서도 살고 영의 세계에서도 살아 세 세계에서 살게 된다.

41. 혼의 세계에서도 육의 세계에서 하듯이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한다.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육체를 쓰고서 남녀 간에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한다. 육의 세계에서도 관광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보듯이, 혼의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혼체를 쓰고서 혼의 영계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행한다. 혼체는 육체보다 수십 억만 배 더 빨리 다니면서 공중도 걸어 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별과 달을 가까이에서 보고, 영의 세계들을 본다.

42. 사람이 육의 세계에서도 똑같은 것을 한자리에서 봐도 각자 지능대로 하늘과 땅같이 다르게 보이듯이, 혼적으로 보면 이 세상 만물들이 육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보인다.

43. 가령 한 여자를 봐도 화가에게는 그 형체가 더 또렷하게 보이고, 의 상 전문가에게는 의상에 따라 달리 보이고, 그 여자의 애인에게는 그 여자가 사랑체로 더욱 돋보인다. / 혼의 세계에서도 자기 마음·생각·정신의 수준에 따라서, 또 혼체의 수준과 지능의 차원에 따라서 보인다.

44. 육신이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자주 가듯이, 혼체도 자기가 좋아하는 혼의 세계에 자주 간다.

45. 육으로는 가기가 힘들고 제한된 곳도 육신이 잘 때 혼체가 갔다 온다. 혼체는 지구 끝에도 갔다 온다. 혼체의 수준이 높고 지능이 발달되어 있으면, 여러 군데 못 가는 곳 없이 다 다니면서 보고, 자기 육신이 잠에서 깨면 자기 육에게 알려 준다. 어느 때 자기 육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할 것도 혼체가 성자에게 계시를 받아서 미리 알기도 한다.

46. 하나님이나 성자나 구원자가 낮에도 계시해 주지만, 새벽에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할 때나, 기도하고 밤에 잘 때 혼체에게 영적 세계에서 계시를 많이 해 주신다.

47. 혼체를 제대로 알면, 그와 같이 영체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혼체 위에 있는 것이 영체이고, 혼의 세계 위에 있는 것이 영의 세계다. 자기 영이 영의 세계를 다니면서 산다.

48. 혼체 발달은 영체 발달이다.

49. 육체가 있듯이 혼체가 있고, 혼체가 있듯이 영체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체이시다. 세 분이 완전히 각각 존재하신다. 하나님과 성자는 완전히 남성 존재자이시고, 성령님은 완전히 여성 존재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지체가 구분되어 있듯이, 혼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50. <혼의 세계>는 ‘혼’으로 보고 확인하고, <영의 세계>는 ‘영’으로 보고 확인한다. <육의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

51. 천사도 남자 천사, 여자 천사로 구분되어 있다. 그 지체도 사람의 남녀같이 구분되어 있다.

52. 사람이 ‘영의 세계’에 가기는 어려워도 그보다 한 차원 낮은 ‘혼의 세계’에 가기는 쉽다.

53. 혼의 세계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다 총괄하시며 육의 세계같이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고로 삼위가 허락해야 혼의 세계의 기본 이상을 보고 겪게 된다.

54. 쪼개서 보면 완전히 알게 된다. 그냥 보면 수준 낮게 보니 모른다. 육 세계 - 혼 세계 - 영 세계다.

<2013년 4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55. 쪼개서 보면 완전히 알게 된다.

56. 성자 본체가 있고, 본체가 있다. 성자 본체는 삼위일체 중의 한 존재로 절대 신이다. 본체는 세상에서 육으로 사는 인간이다. 절대 신은 절대 육체를 대상으로 삼고 그를 그의 육으로 쓰신다. 이 원리는 마치 ‘절대 남자는 절대 상대 여자를 짝으로 쓴다.’라는 말과 같다.

57. 신약은 성자의 초림 때다. 이때 성자 본체는 아들로 오셨고, 그 본체는 나사렛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님은 아들로써 본체였다. 성약은 성자의 재림 때다. 이때 성자는 신랑으로 오시고, 세상에서 성자 앞에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가 재림의 본체가 된다. 그를 주로 믿고 성자에게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성자를 사랑함으로 육도 영도 휴거되는 것이다.

58. 자기가 믿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전능자다.’ 하고 믿고 산다. 그러니 믿다가 헛갈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

59.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다. 창조자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이 삼위만이 절대 신이다. 나머지는 모두 본체로 쓰여지고, 손발로 쓰이는 자다. 성자의 초림 때 본체

는 한 사람밖에 없었고, 성자의 재림 때 분체도 한 사람밖에 없다. 성자의 분체로 쓰이는 그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고 삼위일체 본체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명을 받고, 그의 몸이 되어 일할 뿐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났다. 성자가 나타났다. 성령이 나타났다.” 한다. 성자는 그 육신을 쓰고 인간의 육과 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육 휴거’는 육신 통해 시키시고, 그 육을 통해서 그 영을 변화시켜 ‘영 휴거’ 시키신다.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먼저는 그 육으로 쓰는 자를 분체로 삼고 다 준비시켜 놓고 성자는 다시 하느로 간다. 그동안은 분체가 관리하게 하고,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신랑의 몸으로 오셔서 준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분체의 영과 함께 하늘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60. 자기 영이 자기 육을 이탈할 때, 영이 이탈할 때가 있고 혼이 이탈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을 영으로 보고 헛갈려 한다. 혼과 영을 쪼개서 분별하여라. 육이 잠을 잘 때는 혼이 육을 이탈한다. 흔히 영은 자기 육이 깊이 기도하여 신령할 때 육을 이탈한다.

61. 영이 많이 성장하면, 자유롭게 자기 육을 벗어나 살게 된다.

62. 어느 때는 혼과 영이 같이 일체 되어 육을 이탈하기도 한다.

63. 사람이 잠을 잘 때 뇌 자체에서 생각하고 작용한 것을 꿈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맞다. 그런 때도 있다. 꿈에서 혼체가 활동하지 않아도 뇌 자체에서 생각한 것이 떠오르는데, 이것을 꿈꾼 것같이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마치 생시에 육신이 가만히 있는데, 생각만 하여 행한 것과 같다. 그것을 착각하여 육과 일체 되어 행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64.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육과 일체 되어 행한 일이 있고, 마음·정신·생각으로만 행한 일이 있다. 이와 같이 육신이 잠을 잘 때 혼체와 일체 되어 행할 때도 있고, 뇌 속에서 자기 마음과 생각 자체로만 생각하고 행한 것이 있다. 쪼개서 분별하면 둘 다 확실히 알게 된다.

65. 육신이 벽에 기대어 앉아 가만히 있어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일체 시켜 어떤 한 가지를 집중해서 생각함으로 혼체 차원까지 가 보면, 생각한 것이 그대로 보인다. 이는 환상이나 영상이다. 누구나 마음·정신·생각이 있고 혼체가 있으니, 누구나 이같이 하면 된다.

66.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닿으면서 느낀다. 또한 마음에 생각해 보면서 느끼고, 마음과 생각의 귀로 들으면서 느낀다.

67. 기도하는 것도 육으로 일하는 것과 똑같다. 기도하면 자기 혼체가 영체와 일체 되어 행하게 되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어 행해 주시고, 혹은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며 역사해 주시고, 혹은 상황과 여건을 틀어 역사해 주신다.

68. 기도를 안 해도 성자께서 기본으로 해 주시는 것이 있다. 기도하면 기도대로 합당한 것을 더해서 해 주신다.

69. 기도하니, 내 혼체가 어떤 사람의 혼체를 찾아가서 이야기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좋아했다. 그 후에 며칠 있다가 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다. 꿈에서 보고 편지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적인 꿈으로만 알고 있기에 “기도 가운데 내 혼이 네 혼을 직접 만나 이야기했다.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꿈에서 말한 대로 내 육도 그러하다.” 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행했다. 결국 그리되었다.

70. 사람들은 ‘성자’ 하면, 나사렛 예수님을 생각한다. 땅에서 육체로 생각하면 맞다. 그러나 전능자 영체로 생각하여라. 그러면 성자는 삼위일체요, 창조자요, 절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쪼개서 봐야 확실하다.

71. 모르고 믿는 자들아, 모두 체험해 보라!

72. 호랑이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호랑이를 너무 좋아했다. 누가 고양이를 주면서 호랑이라고 했다. 고양이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으나, 고양이를 호랑이로 알고 길렀기에 그 ‘기쁨’은

호랑이를 알고 기르는 자와 똑같았다. 그러나 호랑이를 제대로 알로 제대로 기르는 자만큼 ‘얻을 것’은 얻지 못했다.

73. ‘사과’를 모르는 사람에게 앵두를 주면서 사과라고 가르쳐 주고 먹게 했다. 그 사람은 사과를 먹는 ‘기쁨’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사과를 먹은 자와 같은 ‘영양가’는 흡수하지 못했다.

74. 다 큰 남자에게 “네가 원하고 바라던 자가 이 사람이다.” 하며 8~9세의 여자 아이를 주면서 사랑하며 살라고 했다. ‘사랑의 기쁨’은 충만했다. 그러나 ‘사랑의 행실’을 제대로 못 하니 곤고했다. 그러다 후에 보니, 남자는 여자 아이와 헤어져서 살고 있었다. “실상 네 상대는 이 사람이다.” 하며 20대 이상의 성장된 여자를 짝으로 주니, 그때는 기쁨도 충만하고 실제로 사랑도 하면서 살았다. / 육체를 가진 성자, 곧 성자 본체와, 전능하신 영체 성자는 다르다. 땅과 하늘같이 다르다.

75.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76. 제대로 알면, 그 육도 혼도 영도 형체가 제대로 변화되어 있다.

77.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는데, 알고 행한 만큼 그 육도 혼도 영도 형체가 만들어져 결과체가 된다.

78. 자기를 길러 주고, 키워 주고,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사랑해 주니 그 사람을 자기 엄마로 보고 애인으로 봤다. 키워 준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다. 사랑해 준다고 해서 다 애인이 아니다. 배다른 엄마였다. 키워 준 자를 통해서 근본자를 알아라.

79. <성부, 성자, 성신>을 확실히 가르쳐 줘라. 이를 모르니 전체를 모르게 된다.

80. <육체 - 혼체 - 영체>를 제대로 가르쳐 줘라. 이를 제대로 모르니 육계와 영계를 모른다.

81. <성자 본체와 분체>를 확실히 가르쳐 줘라.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믿고 구원받고 전능자를 알게 된다.

82. <영 휴거와 육 휴거>를 쪼개서 확실히 가르쳐 줘라. 그래야 시대를 알고, 육도 영도 제대로 휴거된다. 육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어 어디로 휴거되는지, 영은 누구를 통해 어떻게 휴거되는지 제대로 알고 가르쳐 줘라.

83. <역사>를 쪼개서 제대로 가르쳐 줘라. 그래야 자기가 구시대에 사는지, 새 시대에 사는지, 구약인인지, 신약인인지 안다.

84.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동성연애를 안 하고 제대로 살듯, 시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알고 행하며 산다.

85. 사람은 쓰기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 사 온 새 수건도 걸레로 쓰면 바로 걸레가 되고 걸레 취급받는 것이다.

86. 사람은 누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자기도 매시간 누구에게 쓰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새 수건도 천하게 쓰면 걸레로 쓰인다. 사람도 천하게 쓰면 천하게 쓰이고, 귀하게 쓰면 귀하게 쓰인다.

87.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인 심정이 상하면, 상대를 걸레 취급하며 악평하고 우습게 평가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식시킨다.

88. 새 수건을 걸레로 쓰니, 방도 응접실도 덜 깨끗했다.

<2013년 4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천국은 올라가는 길이요,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다.

2. 천국은 빛의 나라, 보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다. 지옥은 캄캄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고통의 나라다.
3. 지옥은 내려가는 길이라서 누구나 힘들지 않게 쉽게 간다. 고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많다.
4. 천국은 올라가는 길이라서 가기 힘들다. 고로 천국으로 가는 자가 적다.
5. 천국도 지옥도 자기 행실로 가게 된다.
6. 예수님의 육신이 태어난 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육신을 통해 행하셨다.
7.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다.
8. 어떤 사람은 너무 모르고 모르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일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9.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만이 절대 신이다.
10. 삼위일체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삼고 세상을 구원하는 육신으로 쓰셨다. 고로 예수님이 행한 것이 삼위일체가 행한 것이다. 성자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저 주셨고, 대신 죽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세상에 보낸 메시아 예수님과 함께 죄를 대신하셨으니, 온 인류가 살 길이 생긴 것이다.
11. 세상의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메시아가 행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같이 행하셨으니, 삼위일체가 한 격이 된다. 그래서 큰 것이다.
12. 모세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
13. 천지를 창조하신 자는 유일신이며 절대 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14. 성자는 이 세상의 구원을 총담당 하시고, 시대마다 합당한 한 사람을 자신의 육으로 삼고 쓰셨다. 초림 때 한 명, 재림 때 한 명이다.
15. 성자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합당한 자를 택하고 뽑고 만들어 자기 육으로 삼고 선지자로, 혹은 왕으로, 혹은 메시아로 쓰신다.
16. 땅에서 육으로 태어난 자는 선지자든, 왕이든, 메시아든 누구든지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서 늙어 죽는다. 이는 전능자가 정한 천법이다.
17. 인간은 매일 세포가 죽어 가니 매일 살이 늙어 가고, 얼굴에 주름이 저 가고, 마음과 정신이 늙어 간다. 그러니 어서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행하여라.
18.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과 주를 최고로 잘 믿는 자들이라도 육신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잘못 푸는 자들이다. 속지 말아라! ‘육신’은 누구나 매일 늙어 간다. 삼위일체와 메시아를 절대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살면, ‘영’이 안 늙는다는 것이다.
19. 육신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모두 그리 알고 살아라.
20. 육신은 꼭 죽는다. 부모도, 애인도, 왕도, 구원자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자는 때가 되면 다 죽는다.

21. 주가 다시 오시면, 육신이 하늘나라로 휴거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 ‘영의 휴거’다.
22. 육신은 한 명도 하늘나라로 휴거되지 못한다.
23. 전능하신 성자가 재림하고, 휴거의 영으로 온전히 만들어진 영만 천국으로 휴거된다.
24. 육신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세상에 다시 오신 성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자를 사랑함으로 시대 구원을 받고 성자의 신부가 되어 사는 것을 <육신 휴거>라 한다.
25. 성자는 삼위일체 중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 격으로 절대 신이다.
26. 성자가 다시 오셔서 세상에 육신이 있는 자들 중에 성자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를 첫 번째로 신부로 부활시킨다. 그리고 그를 자기 육으로 삼고, 그를 통해 재림의 복음을 전하여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신부로 부활시킨다. 성자는 지상에서 첫 번째로 신부로 부활된 자를 신부로 삼고, 구원자로 삼고, 본체로 삼고, <재림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27.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진 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육’은 마치 해가 서산에 지듯이 죽는다. ‘영’은 마치 해가 서산에 넘어갔으니 다른 지역에 있듯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넘어가 영의 세계에서 빛난다.
28. 지구 세상이 생긴 이후로 특별히 100세 이상 산 사람은 극히 소수다. 그나마 얼마 안 가서 죽는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보면 600세, 900세 살았다고 나온다. 이는 그 시대의 계산법으로 따진 나이이다. 지금의 한 달을 한 살로 따진 것이다. 혹은 각 시대마다 여러 가지로 나이를 따져서 나이 계산을 한 것이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았을 때는 1년을 30일로 계산하기도 했다. 거의 한 달을 한 살로 계산하고 살았다. 그러니 요즘보다도 오래 못 살고 죽었는데도 그 시대 나이 계산법으로 따져서 930세, 969세 먹고 죽었다고 성경에 써 놓은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이 1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그같이 나이가 먹은 줄 알고 기적이라 하며 놀랐다.
29. 하나님이 사람을 하늘로 데려갔다고 하니, 육신을 데리고 간 줄 알고 놀라며 육이 하늘로 휴거됐다고 놀랐다. ‘영’이다. 인식을 바로 하여라. 인식을 잘못하면 혼자 미치광이가 되고, 기성의 원시인 꼴이 된다. 고로 휴거된다고 미친 사람처럼 옷을 해 입고 기다리고, 자기 집이나 농토나 차를 남에게 줬다. 영이 휴거돼도 육신은 생을 다 할 때까지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 자기가 사는 집을 남에게 주면 안 된다. 다 현금해도 안 된다. 킁킁. 육신도 성자의 신부이니, 세상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대하고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본체와 함께 죽을 때까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고로 돈도, 옷도, 땅도, 집도 필요하다.
30. 모르면 미친 짓 하고, 생각과 인식을 잘못하면 혼자 미친 듯 짹사랑한다. 결국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자기 사랑하던 자가 와서 온전한 자를 택하여 결혼하고 떠난다. 이 시대의 구시대가 그리되었다.
31. 주는 주를 사랑하는 자 중에서 젊고, 멋지고, 지혜롭고, 최고로 시대를 잘 알고 주 뜻대로 행하며 사는 자에게 오셨다. (월명동 총각)
32. 육신이 열 내야 마음에 느껴지고, 마음이 들어가야 육신이 들어간다.
33. 마음이 들어가야 육신이 들어간다.
34. 돼지가 다니는 길과 집은 사냥꾼이 사냥하려고 지키고 있다.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깨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성자 주님이 계시하시는 것을 급히 받는다.

2. 깨어 있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 있듯 마음·정신·생각이 딴 데 있지 않고, 성자 주님께 향해 있는 것을 말한다.
3. 하루가 멀다 하고 수시로 성자 주님과 통하고 성자께 확인해야 된다.
4. 급할 때는 1분이 멀다 하고 초를 다투는 때도 있다.
5. 성자께 급한 것을 받아 놓고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 급한 때 어찌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몸을 구르면서 기도하니, 성자는 사람을 보내어 이 급한 말을 전해 주게 하셨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했다. 그때 환상 중에 나의 혼체가 내 방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면담을 하려고 내 방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만 시간이 있었다. 그 여자는 순간 내게 할 말을 했다. 그리고 순간 떠났다. 곧이어 내 방문을 열고 남자 네 명이 왔다. 이들은 내게 면담하러 온 자들이 아니었고, 나를 살피려고 온 자들이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키도 크고 몸집도 컸다. 그들은 내 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내가 달갑지 않게 대하니 나갔다.
6. 기도 중에 이 장면을 보고 깨달았다. 그 여자는 내 심부름을 하는 자였다. 그리고 내게 순간 고향 것을 고향 것은 빨리 가서 내가 급히 전할 것을 전한다 함이었다. 그다음에 사탄의 영과 인(人)사탄이 들어왔다. / 꿈에서 혼체는 생시에 육체가 행할 일을 먼저 잘 풀어 준다. 그러니 꿈을 꾸면, 꿈 계시와 생시를 접목시켜 서로 상응된다는 것을 쪼개서 깨달아야 된다.
7. (주 편) 사랑하니까 사랑 비유로 보인다.
8. 묻는 것에 따라 성자께서 말씀하신다. 고로 묻기를 잘해야 된다. 묻는 것은 자기 수준과 차원이다.
9. 성자 주님은 인간이 물어볼 때, 그 차원에 합당하게 대답해 주신다.
10. 자기 차원대로 물으니, 성자가 대답하시며 계시를 주셔도 묻는 자의 차원에 해당되는 답이다.
11. 모르면 물어보지도 못한다.
12. 차원이 높을수록 높은 차원의 것을 물어보게 된다.
13. 고로 깊은 진리는 사명자가 깨닫게 된다.
14. 성자 주님을 깊이 알아야 깊이 높이 물어보게 된다.
15. 성자께 묻는 것은 자기 차원이다. 자기 실력이다.
16. 자기가 깊이 기도하며 깊은 단계에서 깊이 물어보던 것도 그 차원에서 나오면, 왜 그런 것을 성자께 물었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른다.
17. 지혜는 아는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물어볼 내용도 많다.
18. 많은 것을 알고 행하지 못하면 유익한 것이 없다.
19. ‘시의 영감’이 오면 즉시 써서 모두 보게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다. ‘하늘의 진리’도 그러하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과일 나무와 같다.
20. 진리를 알았으면, 육으로 영으로 행하여라.

21.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그렇게도 중요하다.
22. 성자와 서로 통했을 때 남녀가 사랑으로 통한 것을 보여 주신다. 고로 기도는 사랑이다.
23. 신앙의 삶 속에서 성자와의 사랑에 빠져 살아라.
24. 영계는 못 속이다. 자기가 성자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혼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25. 어떤 일은 기회가 20초다. 깨어 있는 자만 20초의 기회를 얻고 행한다. 그 20초의 기회를 잡아 행하면 청중의 운명을 좌우시킨다.
26. 기회를 위해서 1시간 동안 계시받았다. 기회 시간은 20초였다. 180배 차이였다.
27. 번개처럼 행해야 된다.
28. 내가 첫 번째 기회를 놓치니, 성자 주님은 두 번째에는 17분을 주셨고, 세 번째에는 20초를 주셨다. 깨어 있으니 행한 것이다.
29. 영적인 자만 안 것을 비호같이 행한다.
30. 미련하면 알려 줘도 못 행한다.
31.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맨 앞과 맨 끝이다.
32.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머리와 꼬리 차이다.
33.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34. 행한 자는 하늘로 오르고, 행하지 못한 자는 땅에 붙어 다닌다.

<2013년 4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아는 자가 중심자다.
2. 아는 자가 할 수 있다.
3. 아는 자가 시범자다.
4. 아는 자가 표상자다.
5. 아는 자가 성자를 맞고 주를 맞는다.
5. 아는 자는 눈을 뜬 자이고,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6. 아는 자의 역사다.
7. 아는 자가 주인이다.
8. 성자는 아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

9. 성자는 전능자이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10. 성자는 아는 자와 통하시고 동행하신다.
11. 아는 만큼 더 사랑하시는 성자 주님이시다.
12. 모르는 자는 성자 주님이 사랑해도 모른다.
13. 성자에 대해 아는 만큼 행하면, 성자는 역사하신다.
14. 성자에 대해 모르고 행하면 의미를 몰라서 느낌도, 감동도, 기쁨도, 즐거움도, 보람도 없다.
15. 알고 사는 자는 천국이 되어 살아간다.
16. 모르고 사는 자는 맛을 모르고 사는 자다.
17. 모르고 행하는 자는 사랑을 받아도 아무 느낌 없이 산다.
18. 사랑은 육체의 사랑보다 정신의 사랑이 불같이 강하다.
19. 정신이 가지 않는 사랑은 물 같고, 정신이 가는 사랑은 불 같다.
20. 생각이 가지 않고 행한 일은, 행했어도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21. 인간은 생각과 정신으로 살아간다.
22. 생각 없이 산 삶은 식물인간 삶이다.
23. '생각'은 육체의 초자연적 존재체인 정신체다. 고로 자기 생각을 제2의 육체 같은 형체라고 생각하여라. '육체'는 하나의 생각의 지체다.
24.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고,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있다. 혼체는 제2의 육체이기도 하면서, 제2의 신령체이기도 하다. 그 위에 '영체'가 있다. 자기 혼체도 영체도 자기 육체와 형상이 비슷하지만, 혼체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나 영체는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변화되어 있어서 보다 더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형체가 육체보다 뛰어나다.
25.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하나의 육체로 보아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에서 판단하고, 몸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26.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존재하는지 배우고 깨닫고, 육신 세계와 영의 세계도 배우고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뇌로 판단하고, 몸으로 행해야 많은 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행하고 얻고 살게 된다.
27. 보이는 육신은 보이지 않는 마음·정신·생각과 혼체와 영체의 결과다. 혼체는 꿈에 보이고, 영체는 영계에서 보면 보인다. 고로 혼체와 영체는 보이지 않지만, 꿈 세계인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존재체다.
28. 보이는 유형 세계, 곧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결과체이고 상대체 세계다.
29. 사람은 아는 만큼 마음과 몸으로 활동하다가 죽는다.

30. 알고 행하며 살아야 10배, 100배, 1000배 가치 있게 살게 된다.

31. 아는 자와 대화가 되고, 아는 자와 일도 하게 되고, 아는 자와 먹고 살아야 힘도 오고 능력도 온다.

32.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산다면,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것을 얻고 살게 된다.

33. 알아야 하나 되고, 융합되고, 일체 된다.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나와 다투는 자는 '잠'이다.

2. 잠에서 깨어나면 이긴 것이다.

3.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라는 돈은 제시간에 안 쓰면 사라진다.

4. '시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자기 보물을 하나하나 팔아서 쓰는 자와 같다.

5. 새벽꿈에 내 형제가 내게 맡긴 돈이라며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만 원 짜리와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주었다. 이는 잠자고 남은 시, 분, 초를 돈으로 보여 준 것이다. (기도 후 새벽 3시 30분에 보임)

6. 돈은 안 쓰고 아끼면 그냥 있지만, '시간'이라는 돈은 제시간에 안 쓰면 사라져 버린다.

7.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좌우된다.

8.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것에 시간을 써라. 이런 자는 시간을 일억 천만금같이 귀히 쓰는 자다.

9. 육신을 위해 시간을 쓰더라도 근본은 영혼을 위해서 써라. 이런 자는 시간을 황금같이 귀히 쓰는 자다.

10. 기도하여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일억 천만금같이 귀히 쓰는지 깨닫게 된다.

11. 마음과 생각이 신령해야 자동적으로 신령한 일에 정신이 쏠려서 육과 함께 신령하게 행하게 된다.

12. 시간을 완전히 뺏고 행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엄히 시간을 빼앗아 행하신다.

14. 정한 시간이 지나면 절대 그 일이 안 되고 끝나니, 하나님도 그 시간에는 열 일 제치고 절대 그 일을 무섭게 행하신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미리 행하신다.

16. 못 할 것이라도 미리 하면 할 수 있다.

17. 미리 하여라. 미리 하라고 해서 가령 생일이 7일인데 5일에 생일잔치를 할 수는 없다. 미리 하라는 것은 7일이 되

기 전에 미리 음식 준비를 해 놓고, 생일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초청해 놓고, 생일을 위해서 미리 할 일을 해 놓는 것을 말한다.

18. 새벽 1시, 2시, 3시 등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 정한 시간대로 일어나려면, 미리 해야 된다. 제시간에 자는 것이 미리 하는 것이다.

19. 만사의 모든 일을 미리 하면 할 수 있다.

20. 하루에는 누구든지 갈 수 없는 길이라도 전날부터 미리 가면 갈 수 있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21. 50년 전부터 성자의 재림을 놓고 미리 기도하고, 나 자신이 마음과 정신과 육의 행실과 혼과 영을 만들고서, 주님을 맞도록 신령하게 칠보단장하고, 어떻게 성자가 오시는지 알고서 기다리니, 알고 성자 주를 맞았다.

22. 알면 맞고, 모르면 못 맞는다.

23. 미리 주를 맞은 자는 미리 주와 같이 즐긴다.

24. 주를 맞은 자는 성자를 맞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맞고 기뻐하며 산다. 영원한 돈도 부귀도 영화도 전능하신 삼위일체께 있다.

25.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시간도 자기 차원으로 쓴다.

26. 자기를 귀히 만들어라. 그러면 하루라는 같은 시간도 일억 천만금같이 귀히 쓴다.

27. 어린 자들은 시간을 쥐도 귀히 못 쓴다. 성장하고 깨닫고 알수록 시간을 귀히 쓴다.

28. 자기 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최고로 값있게 쓴다.

29. 신령하게 자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써야 적은 시간도 많은 시간으로 귀하게 쓴다.

30. 시간이 없으면,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못 한다.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31.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32.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지구 세상에서 재물·명예·권세·미·예술·지식으로 성공한 자들을 제치고 최고로 성공한 자다.

33. 세상의 재물·명예·권세·미·예술·지식 등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가진 자라도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와 비교가 안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컵의 물과 바다의 물과 같다.

34. 영이 휴거되면, 육도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산다.

35. 휴거된 영은 사랑하는 자 1억 명이 사랑하며 주는 사랑의 기쁨보다 더 성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36. 세상 어떤 재벌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다 합쳐도 휴거된 영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집 한 채 값이 안 된다. 집에 딸린 정원 값은 상상도 못 한다. 어떤 영이 천국에 가지고 있는 정원은 세상의 차로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보

이는 황금 보석 길로 되어 있다. 그러니 휴거된 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세상 재벌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이 비교가 되겠느냐. 지구 전체를 다 팔아도 천국의 집 한 채를 못 산다. /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100% 없어진다. 해가 지듯이 점점 없어진다. 이때는 하나님의 땅을 향한 계획이 끝나는 날이다.

37. 휴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 이성의 행위로 자기가 휴거를 깨부수고 휴거의 길을 벗어난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38. 미련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합당치 않고, 명예와 영광이 합당치 않다.

39. 주를 친구로 보던 시대는 지나간 옛 시대다. 신약시대다.

40. 주를 애인으로, 신랑으로 대하는 시대가 왔다. 성약시대다. 고로 주는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니, '사랑'의 타락을 하는 자는 주를 불신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어 휴거 자격이 상실된다.

41. 신약시대는 오빠 앞에 자기 여동생이 다른 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 격이고, 성약시대는 자기 신부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 격이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진정 회개하고, 본래의 가치는 상실했지만 다시 조건을 세워야 다른 위치로 복직된다. 그렇지 않으면 쪼개져 남남이 된다. 전능하신 성자와 땅에 세운 자 앞에 그리되니, 결국 천국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이성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 하나를 잃은 만큼 큰 손해를 본 자다.

42. 욕이 실패한 자는 영만이라도 열심히 하여 영적으로 성공하여라. 욕도 영도 승리한 자는 최고로 행복한 자다.

43. 한 번 자기 욕신이 사랑으로 타락되면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막 산다. 회개하고 조건을 세우고 복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망치고 버리게 된다. 고로 주와 점점 멀어져 남남이 된다.

44. 죽은 자 가지고 시간 뺏기며 슬피 울면 더 손해다. 지구 세상에 구원할 자들이 너무 많다. 여호와 이레다. 예비된 자가 있다.

45. 사무엘아, '사울'이 불순종한다고 낙심 말아라. 하나님이 키우신 '다윗'이 있다.

46. 왕아, 불순종하는 '와스디'를 보고 실망할 것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미 '에스더'를 예비하셨다. 에스더는 와스디와 족속부터 다르다. 그 족속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족속이다.

47. 구시대 기성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새 시대가 있다. 새 시대는 1000년 동안 흘러간다. 와 보아라! 완전한 진리로 전능자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6000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종교 최고의 역사, 하나님의 최고 역사, 곧 휴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자를 다시 보내어 땅에서 행하고 계신다.

48.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의 하나와 같다. 한 명이 실망시켰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다. 그 한 명을 대신하여 열 명의 별이 더 뜨게 하자!

49. 너 별도 할 수 있다. 한 번 시켜 본 것이다. 너를 안 시켜 보고 다른 자를 시키면 미련을 갖고, 주께 "왜 저는 시켜 보지도 않고 다른 자를 시킵니까?" 하지 않겠느냐. 시켜 봤더니 못 하여 실천하는 자, 다른 자를 쓰는 것이다.

50. 인생 경주를 시켜서 1등 한 자는 1등 위치에 쓰고, 나머지를 또 경주시켜서 거기서 1등 한 자는 그 위치에 쓴다. 그렇게 하여 맨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은 혼자 뛰게 하여 1등 하면 그 차원이다 쓴다. 끝지도 계속하면 1등 할 수 있다. (킁킁.) 다시 쉽게 말하면, 3명이 있다 하자. 세 명을 경주시켜서 1등 한 자를 1등 위치에 쓴다. 두 명도 쓰려면, 나머지 두 명을 또 경주시켜서 거기서 1등 한 자를 그 위치에 쓴다. 마지막에 남은 자도 쓰려면, 그 사람 혼자 경주시킨다. 그러면 꼭 1등 한다. 그렇게 사람을 쓴다. 차원대로 쓴다. 그러니 전능자에게 주께 인정받게 전심으로 행하라는 말이다.

51. 지상영계의 혼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욕을 안 봐도 그 욕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52. 잘해라. 저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천국에도 세상에도 그 공력을 쌓아 간다. 그리고 그 공력대로 천국에 집을 지어 가면서, 그 혼과 영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53. 자기중심대로 행해 놓고 공력이 다 무너져서 탄식한다. 다시 이를 갈며 쌓지 않고 포기하면, 그 혼도 영도 공짜로 지옥 집에 가게 된다.

54. 자기가 수고해서 행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55. 놀면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하지 않고, 그래 놓고서 남들이 눈물겹게 행하여 행한 대로 받고 누리면 시기 질투하고 외면한다.

56. 가다가 만 자는 징검다리와 같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오르는 계단과 같다. 그래도 그때 그 순간 징검다리 계단이 필요했다. 사울과 와스디도 계단이었다.

<2013년 4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인식관이 그렇게도 크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얼마나 착오가 많겠느냐.

2. 어렸을 때 인식관이 잘못됐으면, 커서 다시 보고 다 고쳐야 된다.

3. 어렸을 때는 마음·정신·생각이 어리니, 무엇이든지 큰 것도 작게 보이고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 그것을 커서까지 그대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4. 어렸을 때는 마음 그릇이 작으니 큰 건물을 봐도 자기 작은 마음에 따라서 작게 보인다. 또 작은 것도 크게 보인다. 커서 다시 보고 큰 마음과 생각대로 다시 인식해야 된다.

5. 어렸을 때는 자기가 보던 밭이 그렇게도 커 보인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도 한참 걸린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한다. 커서 다시 보면 작다.

6. 어렸을 때는 사물이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성장하지 못한 대로 보인다. 고로 그대로 인식하고 자란다. 커서도 그 인식 그대로 판단하고 대하고 행하니 착오다.

7. 성경도 어떤 것은 어렸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엉터리로 배우는 것이 있다. 육적으로 인본주의로 생각한 자들이 말하는 대로 아주 그릇되게 배워서 자기도 그같이 인식하고 주장하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관이 안 되고, 하나님과 주를 믿으면서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 욕도 혼도 영도 빛이 안 나고, 늘 영적인 무지의 달동네에서 헤맨다. 올바르게 배우고 다시 인식해야 영적인 햇동네로 나온다.

8. 구시대는 무지의 달동네 세계다. 새 시대는 그 무지를 벗어나서 햇동네로 나와서 사는 세계다.

9. 달동네도 인생 삶이고, 햇동네도 인생 삶이다. 그러나 그 차원이 달빛과 햇빛같이 차이가 난다.

10. 똑같은 달동네에서도 판잣집, 초가집, 비닐하우스 집, 풀로 지은 집... 산 정상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더 형편없다.

11. 새롭게 올바르게 인식을 한 햇동네에서도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행한 대로 차원이 다르다. 그 차원이 수십, 수백층이다. 더 아는 자가 더 얻고, 더 행한 자가 더 많이 얻고 좋게 산다.

12. 무지한 자는 정말 답답하다. 고생이 많다.

13. 인간은 무지함으로 원시인이 된다.

14. 무지한 자는 발달된 세계의 원시인이다.

15. 무지한 자는 세련된 원시인이다.

16. 천국도 아는 자가 간다.

17. 자기 영을 지옥, 무저갱, 음부 쪽으로 보내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었다.

18. 혼의 세계에서 달동네를 가 보니, 사람들이 길바닥의 돌들을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돌이 닳아 있었다. 많이 다녀서 돌들이 바닥에 깔려서 납작하게 되어 반질반질해져 있었다. 산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집들이 더 초라했다. 마치 짐승이 사는 듯했다. 옷도, 집도, 환경도 원시인 삶이었다. 개중에는 섭리 교회에 다니다가 그곳에서 사는 자들도 있었다. 혼체라서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는데, 그들이 먼저 선생이 왔다고 사인해 달라고 해서 눈치를 채고 알았다. 사인할 종이를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노트를 뜯어서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종이쪽을 가져왔고, 개중에는 신경을 써서 화분을 가져와서 화분에 사인해 달라고 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종이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 달동네에서 없이 사니까 없는 대로 대했다. 그들이 대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인해 줄 테니 글을 쓸 것을 좀 가져와라.” 했다. 그들이 붓을 가져왔는데, 연필 촉만 했다. 선생은 그것으로 사인을 해 주면서 “가치를 알아라. 선생 사인이 얼마인지 모르는구나. 가치는 커도 너희는 그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와 같이 너희가 나의 가치성도 모른다. 모르니까 종이쪽에다 사인을 받지...” 했다. 이에 그들은 “이 이상은 더 좋은 종이가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옷도 최고로 좋은 게 이래요.” 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60년 전, 70년 전 옷 같았다. 선생은 “시대는 발달되었는데 너희는 발달된 시대의 원시인처럼 사는구나. 선생도 너희 차원으로 대하기 위해서 너희 차원에 맞게 옷을 입고 왔다. 너희 차원에 맞춰 나타난다.” 했다.

19. 달동네도 차원대로다. 달동네의 어느 한 집에 가 보니, 선생이 왔다고 가족과 친척을 다 불러서 모였다. 선생이 봐도 알쏭달쏭했다. 생시의 삶 그대로였다. 전도하려고 아침에 등산할 회원들을 많이 모집했다고 보고했다. 회원만 많이 모집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한 명씩 말씀을 전해 주며 신앙으로 관리해 주라고 가르쳐 줬다. 가정국들과 장년부들이었다. 젊은 여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선생을 따로 만나서 면담하려고 애를 썼으나, 지혜가 없어서 선생이 몇 년에 한 번씩 달동네에 가는데 결국 못 만나고 아쉬워하며 돌아 나왔다. ‘사랑 차원’대로 혼계에서 달동네에서 사느냐, 햇동네에서 사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

20. 섭리사 안에서도 저마다 수십 층의 차원으로 살고 있다. 모두 자기 혼체가 거하는 혼계에 가 보아라.

21. 말씀을 제대로 알도록 다시 배우고, 깊이 기도하고, 성자 분체의 가치를 알고 분체와 일체 되어라. 그래야 달동네에서 벗어나 햇동네로 와서 신부 신앙을 하여 주를 맞는다.

22. 이 달동네는 알고 보니, 새벽에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사는 달동네였다.

23. 선생은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는 자들의 혼체가 사는 달동네를 순회한 것이다.

24. 새벽을 가치 없이 여기고 사는 신앙인들은 달동네를 면치 못하고 살다가, 그 육신이 죽으면 그 영도 역시 그러한 영계로 가야 된다. 자기 삶이 자기를 예정한 것이다.

25. 육계에서 달동네 삶의 신앙을 하면, 혼계에서도 동일하다.

26. 혼의 세계는 자기 육을 영적으로 보여 주는 세계다.

27. 자기 육계의 삶을 혼계로 비춰 보아라.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28. 혼의 세계를 보면, 세상에서 전도하지 않아서 공적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사는 곳이 있고, 각종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사는 곳이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로 출발하여 각 나라로 가듯이, 혼의 세계에서도 여러 차원으로 다닌다.

29. 육신의 마음·정신·생각과 행실의 삶을 종합해서 혼계에서 혼체로 그 모습을 보여 준다. 혼체라서 누구 육신의 혼체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알아보기 어려운 혼체들은 육계에서도 가깝게 지내지 않은 자들이다.

30. 육의 세계에서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는 자들의 혼체는 금방 알아본다.

31. 혼의 세계에서 만나 보면, 만났을 때 그제야 선생을 가까이하려 하니, 안 된다. 평소 신앙대로다.

<2013년 4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32. 육의 세계에서 보면 섭리에서 유명한 사람은 섭리사 사람들이나 서로 알아주지, 밖에서는 잘 몰라본다. 이와 같이 혼의 세계에서 서로 몰라보고 대했다.

33. 혼의 세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까지 가야 하늘 편을 잘 알아주고, 그 이름을 알아준다.

34. 육의 세계에서 내가 실력이 있어 앞에 가는데도 기분 나빠하고 가로막고 길을 내주지 않았다. 혼의 세계에서 동 일했다.

35. 육의 세계에서는 좀 강하게 대하니 굴복했다. 혼의 세계에서 똑같이 그러했다.

36. 육의 세계나 혼의 세계나 나를 인식시키는 것이 힘든 건 똑같았다.

37. 혼의 세계에서 법이 있어 혼들이 관리를 했다.

38. 혼계의 한 지역에 가니, 어떤 사람이 내게 “여기에 다니려면 티켓을 내놔라.” 하기에 “내가 티켓을 가지고 다니는 자냐? 너, 나 누군지 모르지? 한 번 봐라.” 하며 날아서 갔다.

39. 혼의 세계에는 각자의 혼체가 있다. 고로 배워라. 기도하지 않으면 혼의 세계에서 평범하여 별로다.

40. 신령해야 혼계에서도 혼체가 성자와 함께하게 되고, 혼체가 많이 알고 행하고, 혼계를 또렷하게 확실히 알게 된다.

41. 육의 세계나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모두 배우고, 자신의 지식과 체험으로 많이 알아야 확실하다.

42.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관심을 안 가지고 대하면, 자기 고향에 희귀종 나무와 돌 보석이 있어도 모른다. 월 명동에도 그렇게 귀한 나무들이 많았어도 모두 풀 베듯 베 버리고, 그렇게 귀한 돌들이 많았어도 모두 캐내 버렸다. 살면서 눈여겨보지 않다가 가치의 눈을 뜨고 나서야 귀하다며 갖다 놓고 감탄했다.

43. 어떤 것은 사람에게 걸리적거리고 눈에 거슬린다고 늘 기분 나빠하던 것도 있었다. 그것이 몇 억씩 되는 작품이 되었다. 섭리사 안의 사람들도 그러하고, 세상에서도 그러하다.

44. 수석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냇가에 수십 년 동안 구름같이 물려가서 거기서 씻고 수영하면서, 그 냇가에 있던 돌을 깔고 앉고, 히프로 뭉개며 놀았다. 그런데 그 돌의 가치를 모르니 그대로 뒀다. 그 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주워다 놓고 귀히 여기다가 수석 전시회를 했다. 비싼 돈을 주고 전시회 티켓을 사서 들어가 보니, 자기가 냇가에서 밥 먹으면서 깔고 앉았던 그 돌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떼돈을 만져 보지? 하늘에서 돈뭉치가 떨어지면 좋겠다.”

했다. 그 수석이 얼마인지 물어보니, 3억이 나간다고 했다. 놀라서 너무 충격 받고 자기 무지를 개탄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영원한 보물이다. 수백억의 가치만 되겠느냐.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집에 모셔 놓고 살아라.

45. 사람도 보물이다. 전도해서 찾아라!

4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영계의 보물이다.

47. 하나님이 주신 월명동의 보물도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

48. 낙타바위를 보아라. 누가 100억을 준다 해도 그런 자연석을 갖다 놓을 수 있겠느냐. 그 돌은 들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다.

49. 천국도 가치를 모르는 자는 아예 문 앞에도 못 간다.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들어 준 것을 감탄하고 찬양하면서 좋아서 발바닥이 닳도록 기뻐 뛰어야 황금 보석 천국에서 살게 된다. 자기가 좋아해야 좋은 대로 행하여 얻기 때문이다.

51. 한국에 토종 여우가 나타났다고 온 민족이 떠들썩하게 방송했다. 그러니 월명동 그놈의 짐승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동물이나. 신같이 보이지 않는 동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고 모두 기도해 줘야 된다. 선생은 진정 기도해 준다. (상징이기 때문이다.)

52. 만물이 귀한 것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육과 혼과 영이 귀한 것도 알게 된다.

5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귀한 것을 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자를 상징하고, 보낸 자를 상징하고, 자기 자신도 상징한다. 고로 귀히 대해야 된다.

<2013년 4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육적인 현상을 말로 만들어서 합당하게 표현하듯이, 영적인 현상도 그에 맞춰서 만들어서 보이는 것이다.

2.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말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보이기도 한다.

3. 육의 세계에서는 의문의 세계이지만, 영의 세계에 가면 다 풀린다.

4. 모를 때는 의문이다. 알면 다 풀린다. 육계로 보면 다 의문이지만, 영계로 보면 다 풀린다.

5. 밤에 보면 어두워서 다 안 보이니 의문이지만, 낮에 보면 다 보이니 의문이 풀린다.

6. 모르면 오해, 싸움, 다툼이지만, 알면 다 끝난다.

7. 기도하여 알아라.

8. 성자와 일체 되어 알아라.

9. 성자와 못 통하면 자기 혼체와 영체하고라도 통해야 된다.

10. 자기 혼체와 영체를 통해서 성자의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11.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가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한다.

12. 혼체와 영체는 육체를 쓰고 살 때도 각각 존재하면서도 일체 되어 살고 있다. 육체도 살아 있을 때 혼체와 영체와 각각 따로 존재하면서도 일체 되어 살았다.
13. 육체 - 혼체 - 영체는 각 위로 활동한다. 그러다 육체가 죽으면, 혼체가 육체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영체와 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 산다.
14. 육의 세계에서는 육이 본체로 활동하면서 혼체도 활동하고 영체도 활동한다. 세 존재체가 활동하면서 영력으로 산다.
15.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가 일체 되어 영의 세계에 간다. 영의 세계에 가면 영이 본체로 활동하면서 혼체도 활동한다. 혼체는 영체의 자체 대상체다.
16. 혼체는 영체의 중매 사역을 한다. 고로 영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영체가 안 나타나고, 영체의 자체 대상체인 혼체가 나타나 보여 준다.
17. 성자 역시 영의 세계에서 본체를 안 보여 주고, 성자의 자체 대상체를 보여 준다.
18. 사람도 거의 혼체가 나타나서 보여 준다.
19.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도 '일곱 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다. (참고 - 계 1:4, 계 3:1, 계 4:5, 계 5:6)
20. 사람의 영체의 분체는 혼체다.
21. 사람의 혼체의 분체는 육적으로 육체다.
22. 사람의 육체의 분체는 영적으로 혼체다.
23. 사람의 영체도 육체에게는 안 가고 육체의 분체인 혼체를 보내서 만나고 이야기하듯이, 성자도 그 본체의 모습은 안 보이시고 분체를 보내어 나타내신다. 본체는 안 보인다. 하나님도 영체로서 본체가 있고, 그가 부리시는 하나님의 분체 일곱 영이 있다.
24. 사람도 자기 영체를 안 보이고, 그 분체인 혼체가 나타나 사역을 하면서 보인다.
25. 육적 재림 휴거 역사는 성자의 분체가 나타나서 행한다.
26. 영적 재림 휴거 역사 때 성자 본체가 나타난다.
27. 가정에서도 부부를 쪼개서 보면 남자와 여자다. 그러나 부부 일체다. 사람의 영도 쪼개서 보면 혼체와 영체가 따로 존재한다. 그러나 일체 되어 활동한다.
28. 성령님도 영계에서 보여 주신다. 그러나 성령님 본체의 대상체인 분체를 통해서 보여 주신다.
29. 전능자 하나님은 육계의 만물과 사람도, 영계의 만물과 영들도 항상 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두 겹 줄은 절대 강하기 때문이다.
30. 밤과 낮, 두 겹 줄 역사다. 고로 완전하다.
31. 두 세계를 창조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 수수 작용을 못 한다.

32. 어떤 기계도, 존재물도 짝으로 두 겹 줄로 안 만들면 시동이 안 걸린다.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이 만나야 기능을 하듯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 두 존재를 창조하여 두 존재가 만나야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혼체와 영체’ 두 존재체를 창조하셨다. 그래야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둘’을 ‘하나’로 봐 왔다.

33. 두 개의 눈이 완전히 따로 존재하지만 일체 되어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혼체와 영체는 각 위로 완전히 따로 존재하지만, 서로 일체 되어 존재한다. 심장도 우심실과 좌심실, 우심방과 좌심방이 따로 존재하면서 서로 일체 되어 피를 보내고 받으며 작동한다. 사람의 다리도 두 개로 따로 존재하지만, 걷거나 뛸 때 한 발은 땅에 딛고 다른 한 발은 앞으로 내딛으며 움직인다. 하나님은 혼체와 영체를 이같이 창조하셨다.

34. 영체만 창조했다면, 마치 남자만 창조한 것과 같다. 고로 남자 자체만으로는 상대성을 통한 작동과 기능을 전혀 못 하듯이, 영체도 그러하다. 영체의 자체 대상체인 혼체가 있어야 작동을 하고 기능을 한다. 영체와 혼체는 천국에 가서도 일체 되어 사역을 하고, 필요할 때는 각각 사역을 한다. 그러나 영체와 혼체는 천국의 한 집에서 같이 산다.

35. 영의 세계에는 인간이 모르는 신비한 세계가 무한하게 있다. 육계에서는 그 차원까지 알 필요가 없다. 육계는 우선 영을 구원하기 바쁜 세상이다. 고로 성자도 영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36. 성자가 허락하여 영계를 보면, 자기 영체와 혼체 둘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혼체는 육에 속했기에 자기 육체를 닮았고, 영체는 자기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고로 자기 육체의 모습과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 육이 행한 대로 형성되어 있다. 자기 육체와는 조금 닮았다. 자기 혼체가 자기 영체를 보면, 자기 영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조금 닮았다.

37. 자기 육체가 행한 공력이 자기 영체에게 간다. 고로 혼체와 영체는 차이가 너무 크다.

38. 육 - 혼 - 영을 모두 꿰뚫어 봐야 제대로 본다.

39. 쪼개는 것이 심판이다.

40. 세상에서는 극치의 것을 표현할 때 ‘끝내준다.’라고 한다. 하늘나라에서는 극치의 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고 성자에게 물었다.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이상이 없다. 충만하다. 온전하다.” 라고 한다고 깨닫게 하셨다.

41. 계절의 시작과 끝에는 더위나 추위가 맞물린다.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역사도 그러하다.

42. 사람의 영의 본체는 급이 높아서 직접 안 나타난다. 고로 육에 속한 혼체가 나타나 일한다. / 성자 본체도 하늘에 속한 영이기에 너무 차원이 높아서 직접 안 나타나신다. 땅에 속한 자, 자신의 본체를 통해서 나타나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타나 보이신다.

<2013년 4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의 심정과 실상들을 육으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혼계에서 혼으로 보여 주면서 표현한다.

2. 가령 육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결심한다고 하면서, 그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손가락을 확 깨문다 하자. 그러면 손가락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기만 한다. 심정 표현이 다 안 된다. / 이것을 혼으로 보면, 자기가 결심한 심정에 따라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의 길이가 한 뼘이나 길어져 있고 시퍼렇게 부어 있다. / 이같이 혼으로는 육의 심정과 실상을 더 자극적으로 확실히 표현한다.

3. 세상에는 전혀 그런 나무도, 환경도, 사람도 없다. 그런데 혼계에서 보면 나무도 형체가 다르고 크고, 환경도 생각하는 것을 다 표현하고, 혼체도 키가 3m씩 된다.

4. 영으로 보면 크고, 확실하고, 세밀하게 보게 된다.
5. 영계에서는 공중을 땅같이 다닌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6. 영계에서는 영들이 빈 몸으로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공중을 길처럼 다닌다.
7. 혼체도 영체도 육체같이 몸이 있다. 고로 만지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음식도 먹으며 즐긴다. 그 신비한 삶은 육신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
8. 영들도 수영을 하는데,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배에 물을 스치기만 하면서 가기도 한다. 그런데도 그 속도는 마치 모터보트같이 빠르고, 날면서 다닌다.
9. 혼계나 영계에서는 세상에서 알고 지내던 자를 만나면 알아보고, 세상에서 사랑하던 자를 만나면 바로 알아본다.
10. 육이 죽어야만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육은 육의 세계에서 살지만, 자기 혼과 영은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혼과 영은 육 안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따로 활동하기도 한다.
11. 육이 죽은 후에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육이 살아 있어도 그 영은 이미 지옥의 판결을 받고 지옥에서 살고 있는 자도 있다. 영은 그 육이 행한 행위대로 지금도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육이 악에 속해 살면 그 혼과 영도 악한 영계에서 살고 있고, 육이 선에 속해 살면 그 혼과 영도 선한 영계에서 살고 있다.
12. 심판받으나 안 받으나 이미 자기 육의 행위대로 심판이 되어, 육도 혼도 영도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13. 자기 육이 자기 행위대로 시간마다 느끼고 살듯이, 자기 혼과 영도 그 육의 행위대로 지금 선한 쪽이나 악한 쪽에서 그 차원대로 처해 살고 있다. 그러다 정한 날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심판하시면, 그 혼과 영은 정확하게 갈려서 각자 해당되는 영계로 가서 영원히 산다.
14. 육이 악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하는 자의 영이 어디에 있는지 영계에서 보니, 지옥 쪽에서 살고 있었다. 하나님은 매일 심판한다고 하신 대로 그 육의 행위대로 그 영이 심판받아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서 살고 있다. 혼도 그러하다.
15. 육신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면, 전에는 사망권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니 이제는 생명권에 처해 살고 있었다.
16. 육신이 악한 자는 그 영도 악하게 되어 악한 주관권을 면하지 못한다.
17. 하나님께 행한 것, 사람에게 행한 것, 만물에게 행한 것이 다 선악으로 구분되어 자기가 받는다.
18.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한 가지 죄를 짓고 자기 혼을 보면, 육이 지은 죄의 영향으로 혼이 표 나게 짓값을 받고 있다. 그 육이 자기 혼을 보면서 회개하니, 마치 비를 맞으니 옷의 흠먼지가 씻겨 내리듯이 그 혼에게 있는 더러움이 없어졌다. 손으로 더러운 것 만지면 씻어야 없어지듯 죄는 회개해야 없어진다.
19. 만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 죄로 인해 탕감과 형벌을 받게 되고, 탕감과 형벌이 끝났어도 죄는 그냥 남아 있다.
20. 죄와 형벌이다.
21. 죄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고백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에게 육으로 고백하기도 한다.

22. 자기가 직접 죄를 안 지었어도 선조의 죄로 인해 죄값을 받기도 한다.
23. 하나님은 지도자의 공력으로 인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신다.
24. 예수 그리스도께 쓰이는 자는 '사도'다.
25. 성자께 쓰이는 자, 곧 그의 육으로 쓰이는 자는 '구원자'다.
26. 항상 주께 쓰이는 자는 '사도'요, '제자'다. 성자께 직접 쓰이는 자라야 '구원자'다.
27.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는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성자의 몸으로 쓰이는 자라야 구원자가 된다.
28. 한 나라의 왕 밑에 있는 자들은 다 백성이다. 왕이 되지 못한다. 그 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생겨서 다시 왕이 생겨야 된다.
29. 별통에는 왕이 있다. 그 외에 모두 일별이고, 왕별을 시중드는 별이다. 그 별통에서 분봉한다면 또 왕이 필요하겠지만, 한 별통의 왕별은 하나다.
30. 한 시대가 지나야 다시 주권자를 뽑는다.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러하고, 세상 역사적으로도 그러하다.
31. 구약 - 신약 - 성약은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볼 때 하나이지, 세상 주관권으로 볼 때는 쪼개져 있다. 구약 - 신약 - 성약은 '시대'도 완전히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다르다. 고로 각각 주관권이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실 때는 하나다. 그러나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고로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그 영이 구원받아 거하는 영의 세계도 다르다. 한 세상에서 같이 살아도 각 나라가 다르듯 다르다. <구약>은 할아버지 때와 같고, <신약>은 아버지 때와 같고, <성약>은 자기 때와 같이 다르다.
32. <구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중심해서 살고, <신약>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해서 살고, <성약>은 시대의 성자 분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해서 산다.
33. 옛 시대와 새 시대는 '삶'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34. 같은 추녀 밑에 살아도 사고가 다르면 각각 생활한다.
35. 성약 1000년까지는 한 주관권 세계다.
36. 사람의 몸체는 하나다. 그러나 머리 주관권 세계, 손 주관권 세계, 팔 주관권 세계, 발 주관권 세계, 다리 주관권 세계, 배 주관권 세계, 등 주관권 세계가 다르다. 또한 위·간·폐·장 주관권 세계가 다르다. 고로 같은 자기 몸이라도 각각 '기능'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이와 같이 구약 - 신약 - 성약은 하나님은 한 몸체로 보시지만 '구원자'가 다르고, '말씀의 차원'이 다르고, '구원의 차원'이 다르고, '삶'도 다르다.

<2013년 4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절대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 절대자 성자는 신이시니, 언제든지 내가 의지하고 찾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 성자가 절대자 신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가 의지하고 찾고 사랑할 수가 없다.
3. 성자는 절대자이시니, 언제든지 내가 조건을 세우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기에 '절대적 사랑'을 할 수 있다.

4.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언제든지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없다. 절대자만이 언제든지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할 수 있다. 절대자는 이것이 좋다.
5. 인간은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가령 새벽1시나 2시에 찾아가고 싶은데, 어느 때는 상대가 그 시간에 졸리니까 힘들어하여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때는 상대가 잠을 자고 있어서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때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서 사랑할 수 없고, 어느 때는 사랑의 조건이 안 되어 사랑할 수 없다. 이같이 사람은 환경과 시간과 생각과 정신에 의해서 제재를 받으니 언제든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자 성자는 신이어서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
6. 인간은 사랑하는 자라도 언제든지 사랑할 수 없다. 사람은 '환경'과 '시간'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에 의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다.
7. 전능하신 성자는 신이어서 내가 조건만 되어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 신과의 사랑은 제재받지 않는 사랑이라서 최고로 행복한 사랑이다.
8. 인간은 사랑해 주는 자가 조건이 되어 있어도 상대가 조건이 안 되어 있을 때가 많아서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다. 절대자를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사랑에 만족하다. *선생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성자 주님께 또 사랑하자고 하니, 주님은 “눈만 뜨면 사랑해야지.” 하셨다. 이에 ‘성자 주님은 언제든지 사랑해도 사랑을 받으시니 역시 신이시다.’ 깨닫고, 오늘 잠언을 쓰기 시작했다.
9. 성자 주님은 전능자요, 절대자라 인간이 조건이 되어 사랑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사랑을 받으신다. 그래서 사랑의 근본자이신 절대자 성자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10. 새벽이나, 밤중이나, 낮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 조건이 되어 성자 주님을 사랑으로 찾으면, 주님은 응답하셨다. *고로 깨닫고, 이 잠언들을 쓰게 되었다.
11. 인간은 미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라서 언제든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지 못한다.
12. 성자 주님은 절대자 신이어서 내가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
13.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지구상에 사는 70억 명 모두를 개성으로 사랑해 주신다 해도 각자를 다 사랑할 수 있다. 각자에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각자에게 파티도 해 주신다.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기에 할 수 있다. 신이 1초만 시간을 내주셔도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이 된다. 또 신은 빛보다 빠르게 행하시니 충분하다.
14.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사랑’을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이 언제든지 사랑해도 사랑에 제재받지 않게 창조하셨다.
15. 성자 주님과 언제든지 ‘사랑’으로 대면하여라. 성자 주님은 절대자 신이어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
16. 신랑 되신 전능자 성자는 절대자이시며 삼위일체이시며 신이시다. 고로 인간만 사랑의 조건이 되어 사랑하면 하루 종일 사랑할 수 있고, 1년 내내 사랑할 수 있고, 평생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신다.
17. 인간은 자기가 사랑의 조건이 되어 줘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라도 사랑의 절대자가 아니라서 환경, 시간, 여건, 생각에 제재를 받고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지 못한다.
18. 주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시다.

19. 언제든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어라.

20. 전능자 성자의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가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최고 큰 사랑을 가진 자다. *분체 보고 쓴 잠언이다.

<2013년 4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이신 신이 안 보인다. 그러나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도달하면, 신은 상징적으로 보이신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자 신이라서 우리가 신의 경지까지 도달하여 조건이 되더라도 '상징'으로 보여 주신다. 그러나 천사나, 사탄이나, 인간의 영들은 우리 혼체나 영체로 직접 볼 수 있다.

23.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체'가 영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육체가 죽지 않아도 제2의 죽음인 잠을 자며 기능을 못 할 때는 '혼체'로 나타나 혼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육체와 일체 되어 '혼체'로 존재한다.

24. 혼체는 영에 속한 신령체다. 그렇다고 혼체가 영체는 아니다. 혼체는 육체에 속한 영의 존재체다.

25. 자기 육체가 죽으면, 자기 혼체와 영체가 한 몸으로 결합하여 영의 세계에서 활동한다.

26. 영체는 쉽게 볼 수 없다.

27. 혼체는 육체가 잠잘 때 쉽게 볼 수 있다.

28. 영체는 쉽게 볼 수 없으나 혼체같이 활동하니, 혼체를 보고서 영체를 이해하고 배우면 쉽다.

29. 육체를 영적으로 보는 것이 혼체다. 육체가 잠을 안 자도 기도하면서 정신일도 하여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면 혼체를 보게 된다.

30. 혼체를 통해서 영체도 보게 된다. 고로 먼저 혼체를 배우고 혼적 세계를 배워라.

31. 누구든지 자기가 궁금한 것을 배워야 적극적으로 배우게 된다.

32. 성자 주님은 궁금한 것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깨우쳐 주신다.

33. 궁금하지 않으면 마음과 정신이 집중되지 않기에 성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못 하게 된다.

34. 사람은 궁금하게 생각할수록 마음도 눈도 귀도 집중하게 된다. 고로 성자 주님은 우리가 궁금한 것을 묻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만 말씀해 주신다.

35. (그러니) 물음의 차원을 높여라!

36. 성자께 물어보지 않은 것은 성자 주님이 답을 주셔도 모른다.

37. 답만 주면 모른다. 문제의 답을 줘야 안다. 그러니 성자께 물어라. 자기가 성자께 물어야 합당하면 그 문제의 답을 주신다. 그래야 성자가 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

38. 기도할 때도 자기가 원하고 찾아야 주신다. 그래야 성자가 주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39. 애타게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사연을 구하여라.
40. 성자 주님께 계시받는 자들도 문제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답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가 합당하면 그에 대해 확실히 답을 주신다.
41. 성자는 우리의 마음·정신·생각·심정의 차원에 의해 대상이 되어 말씀해 주신다.
42. 문제의 답이 되어 주시는 성자이시니 첫째, 문제가 분명해야 되고 둘째, 마음·정신·생각·심정이 확실하고 차원이 높아야 된다.
43. 성자가 답을 주셔도 그에 대한 문제를 모르면, 그것이 답인지 모른다.
44. 우리가 조건이 안 되어 성자가 답을 못 주실 때가 있는데, 성자는 답을 주고 싶어 하실 때가 있다. 이때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을 문제로 주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문제를 확실히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성자는 축복으로 주고자 하셨던 답을 주신다.
45. 인간이 성자를 이해하고 알수록 답을 잘 주신다.
46. 인간이 성자에 대해 알수록,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수록, 성자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답도 받는다.
47. 성자가 답을 주신다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 답을 주면,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에 안 주신다.
48. 성자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주신다.
49. 성자 주님께 얻을 것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여라. 그렇게 성자 주님과 충분한 대화가 돼야 한다. 그래야 때를 따라 답을 주신다.
50. 그저 감각과 느낌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성자께 확실히 묻고 응답받아라.

<2013년 5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명길로 가다가 순간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진 자와, 생명길을 벗어나서 가는 자는 다르다.
2. 자기가 좋아서 마음에 계획하고 죄를 짓는 자와, 하늘길을 가다가 그러한 여건이 생겨서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다르다.
3. 상대를 사랑하고자 마음에 계획하고 죄를 짓는 자와, 하늘길을 가다가 순간 유혹에 들어 죄를 짓는 자는 다르다.
4. 아예 마음에 품고 행하는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
5. 마음에 고의로 계획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획하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자와 같다. 하늘길을 가다가 순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획 없이 도둑질을 한 자와 같다.
6. 어떤 마음에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받게 된다.
7.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에서 그런 일을 행했느냐가 크다.
8. 마음에 계획하고 행한 것은 그 짓값이 크다.

9. 형제를 책망해도 어떤 마음에서 책망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10. 형제가 미워서 책망했는지, 형제가 평소에 행하는 것을 보다가 책망했는지 보신다.
11. 형제를 책망하는 것이 자기 성격에서 유발됐는지, 상대의 잘못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책망했는지 보신다.
12.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지만, 죄는 회개해야 된다.
13. 상대가 없어도 자기 혼자 짓는 죄가 있다. 게으른 죄, 자기 책임을 안 하는 죄 등이다.
14. 상대와 행하다가 상대 때문에 짓는 죄가 있다.
15. 죄 문제에 얽히지 말고, 의에 열정을 내라!
16. 보통 해서는 모두 보통 그 위치에 있다.
17.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 공사를 할 때 일주일, 21일, 40일이고 해야 표가 난다. 신앙도 일주일이고, 21일이고, 40일이고 계획한 것을 실천해야 표가 나게 된다.
18. 조금해서는 표가 안 나거나 조금만 표가 난다.
19. 운동도 3년 동안 계속하니까 건강이 표가 나게 좋아졌다.
20. 어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든지, 강사가 되려고 하든지 한 달, 혹은 세 달 동안 전적으로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정확하게 원고도 써 보고, 계속 배우고, 청중 앞에서나 가르치는 자 앞에서 7개월, 1년씩 강의를 해 봐야 된다. 한 명 놓고 강의를 잘하면, 그다음에는 10명을 놓고도 잘하고, 그다음에는 100명, 1000명을 놓고도 잘한다.
21. 강의하면서 부족한 것은 보충하고, 핵심으로 강의할 것을 순서별로 정하고, 핵심을 확실하게 전해야 된다.
22. 같은 휴거 강의라도 순서를 잘 짜고 방법을 잘 써서 해야 된다. 반드시 핵심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 나머지는 살 붙이기다.
23. 왜 '육 휴거'가 아니고 '영 휴거'인지, 논리와 이치를 말해 주며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말해 줘야 된다.
24. 성경에는 '육 휴거'가 아니고 '영 휴거'라는 근거가 많이 나온다. 그 이유는 신약 말씀은 재림주가 와서 한 말씀이 아니고 초림 역사라서 '휴거'에 대한 말씀이 없다. 다만 예언해 두었다. 성자가 재림해야 '휴거'에 대한 인봉이 풀어진 다. / 구약에서는 신약 때 메시아가 와서 한 말씀이 100분의 1도 없다. 인봉인데 나왔겠느냐. 구약 때는 구약 말씀만 나왔다.
25. 신약의 예수님 때는 3년 동안, 그것도 쫓기면서 말씀을 전했다. 신약에서 인봉한 말씀은 신약에서 풀리지 않는다. 2000년 후에 성약 재림 때가 되어 성자가 다시 오셔서 말씀하신다.
26. 신약은 성약의 희망만 가지고 역사를 폈다.
27. 신약역사도 예수님이 일찍 안 돌아가셨으면, 30년, 40년, 50년... 예수님이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말씀이 나왔을 것이다.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만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3년 동안 전한 말씀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신약역사를 펴 왔다.

28. 신약 말씀 속에는 “내가 재림한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 재림도 초림 때와 같이 ‘성자’가 하신다. 인간의 ‘육’은 하나님과 성자가 쓰셔도 그 시대에만 쓰신다. 그리고 ‘영’은 영계에서 그 주관권에서만 쓰신다. 모세의 육은 그 시대에만 썼고, 모세의 영은 구약 주관권에서만 썼다. 모세의 영이 신약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

29. 성약 재림시대는 성자가 재림시대의 사람을 예비하여 신부로 예비된 자를 쓰신다. 그리고 성자가 그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선포하신다. 이 말씀은 성약말씀으로 신약말씀과는 다르다. 이는 마치 형제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애인에게 하는 말이 다르듯 다르다.

30. <신약 때>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끼리 살던 시대로서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펴 왔다.

31. <성약 때>는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여 땅의 신부로 예비된 자를 재림의 육으로 삼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결혼 역사를 펴듯 구원 역사를 펴신다.

32. 신약 초림 역사와 성약 재림 역사는 땅과 하늘 같은 차이다.

33. <신약 역사>는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과 한 가정에서 재미있게 사랑하며 사는 ‘자녀권 역사’다.

34. <성약 역사>는 재림시대 분체와 일체 되어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신부로서 가정을 꾸리고 성자와 사랑하며 사는 ‘신부권 역사’다. ‘육’은 땅에서 하고, ‘영’은 천국으로 가서 1차 1000년 동안 사랑 잔치, 혼인 예식 잔치를 하고, 그 잔치가 끝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끝난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땅에 역사를 펼칠지, 안 펼칠지는 하나님 의향이다. 종교 역사는 구약 4000년 - 신약 2000년 - 성약 1000년, 이렇게 7000년으로 한 역사가 끝난다. 이는 마치 한 남자가 어린 한 소녀를 잘 키워서 성장하면 연애하고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키워서 또 결혼하고 사랑할지는 남자의 의향이다. ‘남자’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비유한 것이고, ‘여자’는 우리 인간을 비유한 것이다. 성자께서 지금 이 글을 쓰게 하시기에 성자께 물으니 “세상에는 계속 역사를 펴지 않는다. 마치 한 배우자를 택하여 일생 동안 살듯이,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만 천국급으로 구원하고, 신부의 영으로서 휴거된 영들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세상에서 지구 전체를 자기 것으로 받고 일생 동안 누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이성 타락하여 그것 때문에 영과 혼을 휴거시키지 못하니 참으로 미련하다. 사랑으로 타락하여 나 성자와 내 육을 배신한 자들아. 너희가 아니어도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 전능자는 전지전능하셔서 다른 자에게 금방 역사하여 그 인원수를 채운다.” 하셨다.

<2013년 5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게으른 자는 그 일의 사명자로서 자격 상실이다.

2.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안 해 주시나?’ 생각 말고, 인간이 해야 된다. 성자는 함정에 빠진 자에게 밧줄을 내려 주면서, “올라와라.” 하신다. 함정에 빠진 자가 그 밧줄을 잡고 올라와야 된다.

3. 필히 구원받을 자가 해야 된다.

4. 구원자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준다. 그 말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해야 된다.

5. 구원받을 자가 구원할 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6. ‘구원’은 전능하신 성자가 그 육을 통해서 하는 말을 듣고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7. ‘구원’은 오직 메시아로 말미암는다.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하는 말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8. 인간이 삼위일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죽으나 사나 역시 인간이다. 인간으로서 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 뿐이지,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
9. 인간이 삼위일체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주권권에서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될 뿐이다.
10. 삼위일체는 우주 만물을 영원히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인간은 모래 한 알을 100년도 들고 서 있지 못하는 존재다.
11. 휴거와 사랑이다. 휴거될 자는 '사랑'으로 된다. 고로 섭리사 핵심인 '휴거와 사랑'을 늘 가르쳐라.
12. 그리고 '성자와 분체'를 늘 가르쳐라.
13. 섭리사에서 생산할 것은 '휴거와 사랑, 분체와 분체, 창조 목적, 육 - 혼 - 영에 대한 것'이다. 섭리사에서 이것을 생산하지 않고, 청소 도구나 생산하려 하느냐.
14. 개인도 교회도 항상 성자께서 지금 이때 분체를 통해서 섭리사에 주신 말씀을 전해 줘라. 이것을 못 전하면 섭리인이 못 된다. 성자의 신부가 못 된다. 강사들과 설교하는 자들이 이것을 꼭 알게 해 줘라.
15. 섭리사의 '얼굴, 곧 머리는 성자'다. '손발은 분체'다. '사랑의 지체는 사랑론'이다. 그리고 '각 지체는 창조 목적론, 삼위일체론, 영계론 등 기타 30개론 말씀'이다. 항상 '핵심'을 근본으로 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16. 시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절대 재림과 휴거, 삼위일체, 창조 목적, 성자와 분체 등 핵심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다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한다.
17. 왕이 통치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말기면, 백성은 몰라서 못 한다. 백성들이 하다가는 사고 난다.
18. 죄는 매일 회개해야 된다. 자기 죄를 매일 회개하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자다.
19. 본인이 근거를 남겼으니, 본인이 근거를 없애야 된다.
20. 본인이 행함으로 근거가 남아 있고 본인이 알고 있다. 고로 그 근거를 없애기 위해 본인이 회개해야 된다.
21. 죄지은 근거는 본인이 알고 있다. 본인의 뇌, 곧 본인의 마음·정신·생각 속에 죄지은 기록이 남아 있다. 고로 본인이 회개하여 메시아로 말미암아 없애야 된다.
22. 회개하여 죄를 없애면 아무도 모른다. 이는 마치 몸을 깨끗이 씻어 때를 없애듯이, 옷에 묻은 더러움을 옷을 빨아서 없애듯, 죄를 없앤 것이다. 고로 아무도 모른다. 오직 성자와 그 육만 안다.
23. 과거에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죄의 대가로 탕감과 형벌을 받았으면, 천국에서는 그 근거를 아예 없애 버린다.
24. 과거에 빚을 졌는데, 본인이 갚았다 하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다.
25. 섭리사 안에서도 과거에 죄지은 것을 회개하여 용서받았으면, 일절 모두 없앤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다. 다만 과거에 죄를 지었으니, 또 지을까 봐 걱정은 한다.
26. 죄는 오직 메시아로 말미암아 사해진다. 고로 분체를 통해서 성자에게 나아가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사해진다.

27. 남을 핑계 대며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고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28. 진정한 회개는 남이나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핑계 대지 않고,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고하는 것이다.
29. 자기가 좋아서 술집을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골고루 사랑하며 향락으로 살아 놓고서 섭리가 뭔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자기는 누구 때문에 이같이 했다고 한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허용하고 허락하여 한 것이다.
30. 심판의 날에는 심판자가 공의롭게 심판하여 쫓낸다. 진정 회개하는 자만 산다.
31. 성자는 죄를 지어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놔두신다.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친다.
32. 요나가 진정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가 가던 길을 쳐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그다음에는 주위 사람들을 쳤다. 고로 사람들이 이를 알고 요나를 고통 가운데 내던지니, 요나는 곧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회개하니 다시 살아났다. 회개 기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때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
33. 거짓말을 섞어서 회개하고, 일부는 회개하고 일부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다. 그 죄로 인하여 정녕 죽으리라.
34. 분체를 속인 것이 성자를 속인 것이 된다.
35. 주를 속이면 그 죄가 그냥 남아 있다. 그 죄로 인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2013년 5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이성을 사랑할 때는 자기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
2. 사람이 얻기 위해서는 타인을 더 사랑하지만, 줄 때는 자기를 우선권으로 한다.
3. 얻으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투자하고, 줘야 될 것이 있을 때는 인색하다.
4. 얻으려는 목적에는 풍부해도, 줘야 될 일에는 인색하다.
5.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않으려 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6. 사랑은 받고 줘야 느낀다.
7. 사랑을 받고도 주지 않는 자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다.
8. 하늘 사랑, 성자 주님을 사랑 받고도 주지 않으면 씨 뿌린 밭에 잡초만 나게 된다. 가꾸지를 못하게 된다.
9. '이성의 사랑'은 사랑을 받으려고 사랑을 주지만, '물질의 사랑'은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10. '물질의 사랑'은 자기 마음이 감동되어 기뻐하면서 주게 된다.
11. '이성의 사랑'은 받으려고 하고, '물질의 사랑'은 주려고 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하시는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이다.

13. 성자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이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시하며 꿈에 혼으로 보여 주신다. 더욱 실감 나게 깨달으라 함이다.
14. ‘성자 주님’을 사랑하여라. ‘기도’를 사랑하여라. ‘말씀’을 사랑하여라. ‘너를 구해 주는 자’를 사랑하여라.
15. 사랑에는 <육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있다.
16. 육적 사랑을 중심해서 정신적 사랑을 하면 육적 사랑이 되어 죄가 된다.
17. 육이 정신적 사랑을 중심해서 사랑할 때 죄가 아니다.
18. 정신과 혼과 영을 중심하여 육이 그에 속해 사랑해야 된다.
19. 육이 중심이 되어 하는 사랑은 <육적 이성의 사랑>이고, 정신과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 주 뜻대로 하는 사랑은 <주와 일체 된 영적 사랑>이다.
20. 성자 앞에 육적 사랑을 하지 말라 함이 아니다. 정신과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서 육도 그에 따라 사랑하라는 말이다.
21. 정신적 사랑, 즉 영적 사랑만 하고 육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정신과 혼과 영만 성자를 사랑하고, 육은 세상을 사랑하며 아무렇게나 살란 말이나.
22. 육이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육이 핵인데 육신을 그냥 썩히란 말이나. 정신과 혼과 영이 중심이 되어 육이 그에 따라서 사랑하라는 것이다.
23. 정신과 혼과 영을 중심하여 주를 사랑하면, 육도 따라가게 된다.
24. 육 중심 사랑은 사망의 사랑이다.
25.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을 중심하면, 육까지 사랑을 이룬 것이다. 육체는 기구다.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은 육신의 주인이다. 고로 육이 정신과 혼과 영을 따라서 행하면 죄가 안 되고 구원이다.
26. 혼과 영은 주를 따라 행해야 된다.
27. 마음·정신·생각 실상 세계다. 마음으로 한 것이면 육신이 한 것이다.
28. 마음으로 진정 회개했으면 회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과 영으로 주를 진정 사랑하면 육도 마음과 일체 된 것이니 육도 주를 사랑한 것이 된다.
29.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다.
30. 몸도, 마음도, 영도 일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듯이 몸과 마음의 실상체인 혼과 영, 이 삼위일체가 같이 주를 사랑해야 된다.
31.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영계를 가 봐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고 감사한다. 본인이 영계를 못 보니 감사하지 못한다. 모르면 배워라.
32.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창조한 것같이 영을 창조하셨다.’ 하면, 이해가 잘 안 된다. 사람은 영을 잘 못 보기 때문이

다. 그러나 혼은 얼마든지 본다. 혼의 몸도 영에 속한 몸이다. 혼체가 있는 것같이 영체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해된다.

<2013년 5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기계를 만들어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중력’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신다.
2. 모터에서 전기를 일으킨다. 인간의 뇌는 모터다.
3. 중력은 모터 역할을 한다.
4.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두 존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체 되어 한 존재를 만들어 불이 켜진다.
5. 사람도 뇌에서 두 존재가 작동하여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 움직이게 한다. ‘하자, 하지 말자.’다.
6. 난자와 정자 두 존재가 한 존재를 만들어 하나의 생명이 되게 한다.
7. 뇌에서도 두 존재가 서로 일체 되어서 하나의 생각을 만든다.
8. 서로 다른 개체의 두 존재가 합해져 하나의 실존 존재가 된다.
9. 서로 성분이 다른 두 존재가 하나 되어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를 이룬다.
10. 한 성분인 정자 안에서도 X, Y 두 성분의 염색체가 있다. 이 두 성분의 염색체 중의 하나가 난자와 결합되어 하나의 생명체를 만든다.
11. 우주도 두 힘의 중력이 하나로 작동하여 한 존재체를 만들기도 하고 움직이게 한다.
12. 인간의 모터인 뇌는 생각만 해도 돌아가고 작동된다. 뇌에서 생각하면, 신경에 의해서 작동된다.
13. 뇌에서 생각을 하면, 그의 상대체로 인해서 뇌가 시동이 걸려 돌아간다.
14. 하나님은 인간의 육과 정신과 혼과 영이 서로 통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어느 한계선까지는 서로 통한다.
15. 전파 세계도 상대와 서로 교신이 된다. 전파로 움직이기도 한다.
16. 인간도 육, 마음·정신·생각, 혼, 영이 서로 통한다.
17. 뇌신경과 몸은 연결돼 있기에 뇌에서 생각만 해도 몸이 작동된다.
18. 우리가 생각해도 안 통하는 것이 있다. 물체와는 안 통한다. 같은 물질끼리 통한다.
19. 물은 물끼리 통하고, 불은 불끼리 통하듯이... 생각은 생각끼리 통하고, 혼은 혼끼리 통하고, 영은 영끼리 통한다. 영은 육과는 못 통한다.
20. 영은 육과는 못 통하니, 자기의 정신과 혼을 통해서 육을 움직이게 한다.
21. 자기 생각으로는 상대의 생각과 통한다. 고로 자기 생각으로 상대의 생각을 감지하기도 하고, 상대의 육과 서로 통하게 되기도 한다.

22. 인간의 생각은 하나 같아도 두 개다. 하나의 마음은 하기를 원하고, 다른 하나의 마음은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 이번 주는 월요일에 선생님 영상 말씀 준비

1. 사람들은 만물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은 알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

2.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를 근본으로 보고, 창조자가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3. 작품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끝난다. 작품을 만든 자가 신기한 것이다.

4. 작가의 구상이 신기하고,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이 신기하다.

5. 하나님은 만물을 신비하고 신기하게 창조하셨다. 어떤 것일까? 아예 만들어 놓지 않고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게 하고, 거기서 잎이 피고, 거기서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점점 커 가고, 크면 사람이 따 먹고, 사람이 그 열매를 따 먹고 그 영양분이 뼈와 살로 가서 윤택하게 하신 것이다. 완전히 만들어 났다면 과정 중에 볼 것이 없고, 또 만든 것이 고정되어 있으니 생명력이 없다. 매일 크고 자라고, 다른 차원으로 수백 단계 변화되게 하여 인간들이 그것을 매일 보게 하셨다.

6. 사람도 그렇게 신비하고 신기하게 창조하셨다.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서 생명이 탄생되게 하셨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합되었을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탄생되게 하시고,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거기서 매일 점점 크고 성장하게 하셨다. 생명이 있는 것은 매일 크고 자라고 변화된다. 태 속의 태아도 그러하고,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도 어린아이로 자라고, 어린아이도 점점 크면서 몸이 발육되고 지체가 변화되고, 그 생각과 행위도 변화된다. 끝없이 변화다.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은 이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7. 하나님은 인간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발육하고 성장하고 변화될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기뻐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세상을 기쁨으로 살도록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게 창조해 주셨다.

8. 만일 육과 정신이 정상이 아니면, 성장하고 변화되어도 실망으로 변색된다.

9. 신앙적 세계에서 '사랑'도, '믿음'도, '영적 변화'도 자기가 수고하는 대로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접하고 행하면서 몸에 유익이 되게 하셨고, 그로 인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다. 만일 인간의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성장 과정 없이 완전하게 창조해 놓으셨다면 변화가 없으니 기쁨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생각과 행위가 늘 같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거울로 삼고 배워서 자기도 행하게 하시며 '변화'와 함께 살게 하셨다.

10. 인간은 성장하면서 각 지체가 어렸을 때보다 더 보기 좋게 변화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변화된다. 성장이 자기 변화를 일으킨다. 자연과 때에 맞춰서 성장하면서 변화되지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야 더욱 원하는 쪽으로 변화된다.

11. 인간의 육신은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성장이 끝난다. 그다음에는 육신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며 변화된다. 그 과정은 50대까지다. 그다음에는 각 지체들이 늙게 되는 변화를 맞는다. 이때, 보다 건강하게 살면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늙지 않고 튼튼하게 된다.

12. 육의 몸이 발육되는 때는 25세 정도까지다. 그러나 운동하고 자기 몸을 살피면, 30~40대까지 각 지체가 더 좋게 촉진되고 만들어진다. 손으로 작품을 만들듯이, 자기 몸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13.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은 70대 이상까지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노력이다! 수고다! 생각의 개발이다!

14. 육적 세계에서 오는 육적 생각의 주관권에서는 육적 변화만 되고,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영적 세계 차원에서 마음·정신·생각·혼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무한하다. 끝이 없다. 영적 세계에는 수천 단계의 차원이 있다.
15. 변화가 기쁨이다. 희망이다.
16. 변화되는 것만 보고 즐기지 말고 써먹어야 된다. 뜻있게 쓰고 즐겨야 된다. 육적 세계로만 쓰면, 육신이 죽으면 육의 소멸과 함께 그 혼과 영도 그 차원의 영계에 처하여 사망에 가서 살게 된다.
17. 변화된 몸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서 영적으로 써라. 그러면 육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도 기쁨과 이상세계이며, 그 영은 그 차원 급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18. 변화의 기쁨을 알아라.
19. 나쁘게 변하는 것은 ‘변질’이라고 한다. 그것으로 결국 절망과 고통과 치명적인 날을 맞게 된다.
20. 환경 바뀌면 생각도 바뀐다.
21. 몸 변하면 마음도 변한다.
22. 성자가 즐거워하며 보는 것에 자기 생각대로 손을 대니, 그것을 좋아하며 보던 성자의 마음도 바뀌었다.
23. 좋게 변화다!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매일 좋게 변화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그리고 인간과 만물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며 살게 하셨다.
24. 자기가 구원자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설득하고 가르쳐서 믿고 따르게 하면서 돕는다. 그러나 안 따르면 구세주라도 못 해 준다. 하나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 데 한계가 있다.
25. 육신이 죽으면 영이 죽는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육신이 안 하면 영이 죽는다.’ 함이다.
26. 가령 육신이 교회에 안 갔다 하자. 이는 신앙으로 죽은 것이다. 그 영도 육신을 따라서 교회에 안 간 것이다. 고로 영도 죽은 자가 된다.
27. 입이 음식을 안 먹으면 위도 안 먹은 것이 된다. 위가 못 먹으니 세포도 못 먹게 된다. 육과 영도 이와 같다. 육과 영은 부부 일체와 같다. 육신이 하면 영도 한다.
28. 신앙으로 육신이 살아 움직이는 만큼 혼도 영도 살아 움직인다고 보아라.
29. 육신이 안 하면 영도 죽고, 육신이 신앙으로 살면 영도 산다.
30. 하루를 살아도 육신의 마음·정신·생각·생활 모두 신앙이 살아 있는 삶의 강도에 따라서 혼도 영도 살아 있다.
31. 육과 혼과 영은 별개지만, 한 지체로서 연관되어 있다. 육이 편하면 마음도 편하고, 육이 고달프면 마음도 고달프다. 혼도 영도 그러하다.
32. 육과 혼과 영은 각 존재체이면서도 연관되어 일체 된 삶을 산다. 반드시 육신이 모든 것을 행해야 그 행위가 혼에게 흡수되고, 영에게도 흡수되어 변화된다. 마지막에 육은 죽어 없어진다.
33. 자기 육과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을 좋게 변화시켜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신 만물들과 인간들과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차원으로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2013년 5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초가집이라도 다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때려 부수는 것이다.
2. 옛것을 때려 부수기, 새것을 다시 세우기다.
3. 매일 자기 모순과 흠을 놓고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모순된 옛 마음·정신·생각·행실을 때려 부수기다. 그리고 새 마음·정신·생각·행실을 받아서 다시 세우기다.
4.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얻는다.
5. 썩는 마음과 행실을 버려야 썩지 않는 마음과 행실을 주님이 주신다.
6. 오늘도 비진리와 못된 마음과 사탄의 마음을 버려라. 매일 승리는 인생 승리다.
7. 마음이 더러우면 전능하신 성자는 못 오신다.
8. 자기를 '의'로 이겨야 상대를 이긴다.
9. 자기를 이기는 만큼 성자가 축복해 주신다.
10. 잠을 이기고, 육성을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행함으로 이겨라! 마음·정신·생각과 혼체를 쏟아서 이겨라!
11. 자기를 이기면, 사탄이 방해해도 조건이 없어서 물리치기만 하면 어둠이라서 사라진다. 자기 수호천사와 성자 주님을 불러서 사탄을 물리쳐라!
12. 이기겠다고 결심하고 행하여라!
13. 이겨야 그 날 성자 주님을 맞는다.
14. 자기 성격을 온전히 만들어서 이겨야 성자 주님이 오시면 현실에서도 맞고, 재림 때도 맞는다.
15. 이기지 않고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16.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자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준다고 했다.
17. 매일 이길 것을 이기면 매일 주신다.
18. 하늘나라 창고에 줄 것이 가득 차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준다.
19. 배우고 알아야 이긴다.
20. 이기기 쉽다. 불의한 일과 죄짓는 일은 손, 발, 몸, 마음, 정신, 생각을 퐁퐁 묶어 놓고 안 하면 이긴다. 참으면 이긴다.
21. 이기면 성자 주님이 대가를 주려고 오신다.

22. 이기고 얻어야 사탄을 이겨서 사탄이 못 뺏어 간다.

23. 성자의 말에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다.

24. 매일 이겨야 자기 신앙이 부도나지 않고 유지되고 운영된다.

25. 사탄은 눈에 안 보이려고 계획적으로 숨어 다닌다. 그러다가 인(人)사탄을 쓰고 오면 안다. 사탄에게 지면 사탄이 다 뺏어 간다.

26. 사탄은 영물이라 사람같이 혼체가 없고 육체가 없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혼체도 있고, 영체도 있어서 싸우면 얼마든지 이긴다.

27. 성자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조건 기도를 하여라.

28. 자기 수호천사가 사탄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 자기 수호천사를 불러서 합심하여 같이 사탄을 물리쳐라. 수호천사는 전능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능력과 사명이 있기에 사탄을 물리쳐 준다. 사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없으니, 마치 모기나 진드기나 해충 같은 입장이다.

29. 이기는 대로 차원 높이 오른다.

30. 악평자와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정한 심판 날이 있다. 그들은 그날부터 사망으로 가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

31. 사탄에게 지면, 진 만큼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탄의 형벌을 받는다.

32. 매일 기도하여 이겨라.

33. 육도 혼도 영도 이겨라.

34. 세상과 사탄을 이긴 주와 일체 되어라.

35. 자기 목적인 바를 행하는 것이다. *작년 가을에 계시를 해 주기 위해 성자께서 보내 주신 귀뚜라미가 있었다. 어느 날 내 방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들어왔다. ‘방에 모기도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귀뚜라미가 들어왔지?’ 생각하는데, 그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방에서 귀뚜라미가 생기지는 않는다. 기도하며 성자에게 물어보니 “이제 더위가 꺾였으니 괜찮다.” 하셨다. 내가 여름철 폭염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던 날에 가을을 알리기 위해 성자께서 계시로 보내 주신 귀뚜라미였다. 그날은 입추(立秋) 새벽이었다. 나는 귀뚜라미가 방이나 화장실의 물 있는 곳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크게 놔두고 돌봤다. 이 귀뚜라미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내 방에서 컸다. 그러다 천장 구석에 있는 거미줄에 귀뚜라미의 발이 얹혀 있는 것이 순간 눈에 띄었다. “주님, 어찌할까요? 주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곧 거미가 잡아먹겠어요.” 하고 물었다. 이때 성자 주님은 “목적한 바를 행하는 것이다.” 하셨다. 결국 거미를 잡아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렸다. 그리고 거미줄을 다 걷어 버렸다. 그냥 뒀다면, 분명 거미가 귀뚜라미를 잡아먹었을 것이다. 귀뚜라미는 늘 천장 끝까지 올라가서 5시간씩 벽에 붙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도 저같이 방바닥과 벽에 들러붙어서 일하겠다!” 했다. 거미는 거미줄 쳐 놓고서 그것을 울무로 삼고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거미는 생명을 해한다. 그러나 귀뚜라미는 생명을 해하지 않고 물만 먹고, 힘이 차고 넘치면 그대로 벽에 붙어서 5시간 이상 앉아 있다. 신기했다.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같이 목적한 바를 행한다. 하늘 의인들이 나의 계시를 알리는데, 행악자들이 함정을 파 놓고서 의인들에게 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하늘 의인들이 죽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느냐. 네가 목적한 바를 행하여 귀뚜라미를 구하려고 거미를 잡았듯이, 하나님도 사탄과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롭게 하면 목적한 바대로 의인을 위해 행하신다. 걱정 마라. 전능자가 있고, 천천만만의 못 영들이 있고, 인간이 감히 추산하지 못하는 천군 천사 대군이 있다. 기도하여라. 하나님은 사탄과 악인의 그 수를 아깝게 보지 않으시고 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중에서 100분의 1이 되든지, 1000분의 1이 되든지 의인을 살리는 것만 목적하고 행하신다.” 하셨다. (거미를 화장실 변기에 넣어 없애듯이, 하나님과 성자께서 사탄과 악인들도 그같이 하신다는 말이다.)

36. 삼위일체는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오직 의인들만을 위해 행하신다. 악인들을 위해 행하지 않으신다.

37. 하나님과 성자는 보낸 자를 증인으로 하여 악인들을 지켜보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심판을 감하지 않고 행함으로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신다.

38. 하나님도 성자도 의인들에게 목적을 두었으니, 오직 의인만 위해 행하신다.

39. 의인과 악인 둘 중에 의인에게 목적을 두었으니, 악인은 곡식 앞에 잡초같이 없애진다. 귀뚜라미 앞에 거미를 없애듯 없앤다.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40.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믿어야 하나님과 성자께 연결된다.

41. 그러나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 그 사람만 믿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된다.

42. 항상 성자가 보낸 자를 절대 믿고, 그를 통해서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43. 보내 준 자는 ‘영’이요, 보내서 온 자는 ‘육’이다.

44. 보내 준 자는 아버지요, 보내서 온 자는 어머니다. 어머니도 믿고 사랑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도 믿고 사랑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내 주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요, 보내서 온 자는 그 분체로서 삼위가 사랑하는 육이다. 고로 그를 통해 삼위일체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서 구원받고 뜻을 이루는 것이다.

45. 보내 준 자는 ‘신랑’이요, 보내서 온 자는 ‘신부’다. 누구나 신부의 말을 듣고 행하면, 그를 보내 준 자의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게 된다.

46. 스스로 온 자는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에 대해 말한다. 고로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47. 보내서 온 자는 보내 준 자와 늘 교통한다. 고로 항상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이며 시대를 이끌어 간다.

48. 보내서 온 자가 자기를 중시하고 보내 준 자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보내 준 자는 그를 떠나서 그가 모르게 다른 자를 시켜 행하신다.

49.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냈건만, 사울은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사울 왕 몰래 다윗을 다시 뽑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역사를 펴 나가셨다.

50. 아예 자기 생각과 자기중심으로 하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과 성자의 뜻대로 해야 된다. 다만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땅의 분체를 통해 실천하신다. 그렇게 안 하면 사탄 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51. 오직 성자가 보낸 메시아가 성자와 심정 일체다. 한마음이다. 이는 그가 성자의 심정을 받아 외치기 때문이다.

52. 보내 준 자의 심정을 말로 전해 받듯이 받아야, 보내 준 자의 마음대로 한다.

53. 성자의 마음과 주의 마음을 받고 행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사울같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결국

버림받는다.

54. 성자가 보내서 온 자는 오직 보내 준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분체 역할만 해 주면 된다.

55. 분체가 보낸 자도 분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체 역할만 해 주면 된다. 분체가 성자로부터 구상을 받는다.

56. 항상 ‘육’과 ‘혼’과 ‘영’을 생각하여라. ‘영’은 성자와 같고, 성자의 분체는 ‘혼’과 같고, 따르는 자들은 ‘육’과 같다. 육이 혼과 영의 손과 발과 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다. 이같이 해야 육이 땅에서도 하늘의 신부로서 살고, 그 영도 하늘 천국의 성약성에서 신부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

57. 천국의 성약성은 신약성과 전혀 다르다. 위치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삼위일체가 대하는 것도 다르다. 성약성은 신부 집의 확대 세계다.

58. 섭리사에서 선생은 각자에게 해당되는 대로 사명을 주어 보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점 자기중심으로 흘러가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 결국 사명이 귀한 것을 모르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러니 선생도 그대로 사명을 맡길 수 없었다. 결국 흐지부지하다가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있고, 섭리사에 남아 있지만 아직 모르고 사는 자들이 있고, 후에 깨닫고 열심히 하는 자들도 있다. / 제대로 알고 행하여라. 처음부터 나중까지 오직 주 사랑하는 정신으로 충성으로 하는 자만 그 행위대로 쓰고, 돕고, 역사한다. 그리 인정받고 행하는 자를 따라서 행하여라.

59.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보냄을 받고 열심히 하다가 자기 뜻대로 하여 버림을 받고, 자기중심대로 하다가 섭리사를 나가고, 섭리사에 남아 있더라도 사명을 거둬 받았느니라.

60. 보내 준 자와 보내서 온 자는 혈관과 피가 하나 되어 혈액순환을 하듯이 한 지체이기에 같이 행한다.

61. 보내 준 자와 하나라도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된다.

62. 매사에 성자와 분체에게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여라. 하늘의 뜻을 이루는 섭리역사가 아니냐. 오직 전능자의 뜻이 이 땅에 실행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인 바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각 인생에게 실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신다. 그래야 인간의 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

63. 잠언 하나라도 잠언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써야지, 자기 주관을 넣으면 그만큼 빛나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한다.

64. 자기중심대로 하는 자는 그 영, 혼, 육이 자기가 만든 대로 형체를 이루게 된다. 인간의 영, 혼, 육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체로 만들어져야 삼위일체를 닮은 대로 그 영혼이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65.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 왔는데, 똑같이 사과를 사 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평소에 심정 일체로 살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일체 되어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에, 떨어져 있어도 같은 마음으로 행한 것이다.

66. 성자의 사랑도 끝이 없고, 잠언과 그 말씀도 끝이 없다.

67. 말뼉 같은 사람은 너무 강해서 신랑이 신부로 못 데리고 산다.

68. 마음이 양털같이 부드러워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에 주님이 끝까지 쓰신다.

69. 강하게 하는 자는 가인의 마음과 염소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째뽕된 자다. 고로 주는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내젓는다. 그리고 심정이 안 맞아서 슬그머니 뒤로 빼고 서서히 발길을 돌리고 멀리한다. 양들도 신부들도 마음에 상처를 받고 등을 보인다.

70. 사명을 받을수록 매일 개인과 교인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늘 자기를 검토해야 된다.

71.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잘못 행해도 사명으로 행한 것으로 생각하니 모른다. 권면과 교육과 말씀으로 감동과 감화를 줘야 된다.

<2013년 5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 이번 주는 금요일에 게시 말씀 준비

72. 선생이 20대일 때다. 석막교회 나갈 때다. 그때 석막교회의 교역자였던 전도사는 내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설교를 하다가 혀를 돌려서 꼭 나를 지적하며 설교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단이 성행한다.” 했다. 그 전도사는 잘 곳이 없어서, 늘 우리 집의 내 방이 깨끗하니까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서 주일설교와 수요일설교를 하러 교회에 갔다. 그는 신학생이었다. 그때 선생은 산(山)기도를 다닐 때였다. 그 전도사는 이것을 의식하고 사탄과 함께 나에 대해 지적인 것이었다. 한번은 우리 집에서 그 전도사를 만났다. 그래서 나는 “왜 전도사님은 계획하고 준비한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나만 나타나면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아요. 혹시 내가 이단이면 내게만 말하지, 왜 전(全)교인들에게 말해요? 성경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왜 이단이에요?” 했다. 그는 아무 대답을 못 하고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앞으로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을 보세요.” 했다. 우리 엄마는 그 전도사를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신같이 받들며 먹는 것을 최고로 대접해 주며 잘 대해 주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 놓고도 자기 아들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 알았으면 달걀 반숙과 귀한 나물과 김과 귀한 반찬들을 다 내게 대접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은 나를 통해 그 전도사를 따끔하게 혼내 주셨다. 나는 더 혼내 줬다. 그 후로 내 방은 내가 좀 써야 되니, 다른 교인 집을 알아보라고 했다. 그때 새 집을 지어서 70년대 별장같이 집을 만들어놓고 살 때였다. 그래서 방이 너무 깨끗하고 좋았다. 소나 가축들도 안 길러서 마당도 깨끗했다. 나는 엄마에게 “하나님의 종이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렇게 대접해요? 나는 종이 아니니, 나 좀 대접해 줘요.” 했다. 그러나 엄마는 삶은 달걀 하나도 안 주셨다. 나는 엄마에게 “그 전도사가 내게 이단 소리 하는 거 엄마는 듣기 싫지도 않아?” 했다. 엄마는 “이단 소리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너보고 말하는 것을 나도 알고 교인들도 알고 다 싫어해.” 했다. 결국 그는 이름 없는 주의 종으로 있다가 떠났다. 사탄은 항상 무지하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마음을 거스른다. 그를 쓰던 사탄도 기도굴에 끌어다 놓고, 사탄 발바닥에 성령의 검을 꽂고 보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꼴을 못 보는 야비한 사탄과 인(人)사탄이다. 하나님의 천적인 사탄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끌어다 넣을 것이다. 사탄의 꾀를 받아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악평하고 욕하고 해하다가 지옥에 가지 말아라. 사탄의 꾀를 받지 말아라.

73. 내게 이단 소리를 한 자는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시켜서 했으니 사탄에게 끌려간다. 사탄은 자기가 꾀어 놓고서 나중에는 시치미를 뚝 떼면서 “왜 하나님이 보내서 구원하러 온 자를 내가 이단시하겠냐?” 한다. 그때 “너 사탄이 나를 꾀고 내게 시켰다.” 하면 “이것이! 사탄은 악한 자들의 왕인데, 왕에게 대들어?” 하면서, 쇠망치로 그 입을 때리고 갈고리로 찢으면서 별짓을 다 한다. 사탄의 꾀를 받아 행했어도 티끌만큼도 사탄을 못 건드리니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심적 고통을 당한 것을 그가 그대로 사탄에게 받는 것이다.

74.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분노를 내고 스트레스를 풀더니, 그 죄의 대가가 지옥인지 모르고 행했구나.

75. 내게 이단이라고 하며 나를 그렇게도 미워하던 자가 있었다. 그는 60대에 병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그는 “나는 주의 종이다.” 하면서 산이 울리도록 큰소리를 치고 다니던 모 교회 목사였다.

7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내서 그의 욕으로 쓰는 자를 물어뜯고 괴롭히니, 삼위께서 그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시겠느냐.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그 행위대로 갚아 주셨다. / 성자 주님은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하셨다. 결국 개인도, 민족도 모두 흔들려 치셨다. 그 욕은 세상에 없고, 그 땅도 세상에 없고, 그 영은 영영 사망으로 갔다.

77. 성자가 보낸 자를 대하는 대로다.

78. 호랑이 새끼가 괴로워서 울고 있으니, 그 아비와 어미가 그것을 보고 어찌하겠느냐.

79.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슬피 운다.

80. 항상 자기가 섬기는 자는 사랑하고 믿는데, 그가 자기를 위해 보낸 자는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시대 구원을 못 받고 구시대의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에서 애처롭게 살다가 끝난다. (그고 앞에 요시야 같다.)
81. 주가 보낸 자를 주를 믿고 사랑하듯 하지 않으면, 주가 보낸 자를 통해서 준 것을 얻지 못한다.
82. 성자 본체를 사랑하고 믿듯이 성자가 보낸 그 육인 본체를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성자가 그를 통해서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시대 구원을 이루어, 그 영이 그 차원으로 변화된다.
83. 본체가 보낸 그의 본체를, 본체를 믿고 사랑하듯 해야 된다. 그래야 본체가 그를 통해서 준 말씀을 듣고 믿고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린다.
84. 보내서 온 자는 항상 보내 준 근본자의 심부름꾼이다. 사역자다. 고로 먼저는 절대 그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며 그와 일체 돼야 한다. 그래야 근본자와 연결된다.
85. 한 왕에게 정말 충성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왕이 그에게 직접 가고 싶었으나 직접 못 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자를 시켜서 “네가 내 대신 어디를 가야 되겠다. 거기에 가면 누가 있다. 그를 내게 데려오고 이것을 전해 주어라.” 했다. 이에 왕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가 왕이 사랑하는 자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잘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역자의 흠을 잡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이에 그 사역자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었다. 왕이 만나 보라고 한 자가 오히려 사역자를 억울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알고, 왕은 그에게 줄 것을 뺏어 다른 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두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냈다. 이 시대도 그러한 자들이 많다.
86. 시대마다 사람들은 항상 보내서 온 자를 미워하고 흠을 잡는다. 그들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미완성자들이다. 고로 결국 행위대로 되게 된다.
87. 주의 이름으로 온 자를 분별해라. 그리고 그를 주를 대하듯 해라.
88. 꿈에 혼이 보고 듣고 생활한 것이 육과 연결이 안 되면 육이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이 혼과 같은 본체와 연결해서 행하기다.
89. 가령 꿈에 성자께서 어떤 귀한 것을 현몽하여 깨우쳐 주셨다 하자. 성자의 계시인데 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꿈만 꾸고 좋아하기만 하면, 육신이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끝난다.
90. 한번은 꿈에 여우, 늑대, 이리들이 내 집에 왔기에 피했다. 그런데 사냥꾼들이 와서 그것들을 잡아가고 있었다. 이튿날 꿈을 생각하고 내가 있던 곳에서 피해 멀리서 보니, 인간 여우, 늑대, 이리들이 왔다. 결국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천사들이 사냥꾼이 되어 그들을 잡아갔다.
91. 생시에 산에 올라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 멀리서 인간 여우와 늑대들이 다니는데, 나를 못 보고 계속 찾아다녔다. 20m 떨어진 곳에서 내려다보니, 검은 여우와 늑대들이 산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날 전능하신 성자와 함께 운동하고, 천사들이 그 여우와 늑대들의 눈을 가려 소경이 되게 함으로 나를 못 봤다. 그래서 나와 같이 운동하던 자와 함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2. 겨울이 없는 나라의 산은 잡초가 죽지 않아서 너무 지저분하다. 고로 뱀들과 독벌레들이 우글거린다.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다. 환난·핍박·어려움 등 혹독한 겨울로 인해서 잡초가 없어진다. 그로 인해 해마다 뱀들과 독벌레들이 없어져 깨끗하다.
93. 인간의 마음 밭에 있는 잡초를 없애고, 그 속에 있는 뱀과 독벌레 같은 사탄을 멸종시켜야 된다. 그래야 천국 된다.

94. 다윗 왕을 시기 질투하며 쫓던 사울 왕은 마음에 악마가 들어가서 왕 노릇하며 평생 다윗을 괴롭혔다.

95.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잡으려 했던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군사를 모집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은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했다. 이에 압살롬은 말을 타고 숲을 달리며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낚혀 죽음에 이르렀다. 이에 다윗의 군대가 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린 압살롬을 창과 칼로 찢어 죽였다.

96.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던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은 무장하고 와서 소년 다윗과 일대일로 싸우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이마를 맞고 뒤로 나가떨어졌고, 이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목을 베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싸우셨다.

9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기름 부은 자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추격하면, 하늘의 사자를 보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시어 영원히 그 꼴을 안 보는 하나님이다.

98.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사들과 왕들을 추격하던 민족과 대군들을 하나님은 모두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땅까지 황폐하게 하였고, 그 후손들까지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이 4000년, 1000년씩 그 땅을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두고두고 그것을 말하며 증거하게 하셨다. 멸망받은 영혼들은 지옥과 무저갱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그 죄를 땅에서 씻음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

99. 구원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원자를 억울하게 하며 생명을 사냥한 자들은 하늘 사자 사냥꾼에게 걸려 잡혀가서 그 행위대로 영원히 대가를 받는다.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의 기쁨의 전부는 '사랑'이다.

2. 성자의 마음을 두 쪽으로 보아라. 한쪽은 기쁜 쪽이고, 다른 한쪽은 슬픈 쪽이다.

3. 성자가 왜 기뻐하는지 보고, 왜 슬퍼하는지 보아라.

4. 저마다 성자에게 자기 마음을 알아 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성자는 마음을 알아주신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5. 새롭게 하는 것이 더 빠르다. 옛 마음을 가지고 하느니, 모두 뒤엎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6. 전능하신 성자를 보고도 부족하다고 하며,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성자를 일부만 믿는 자들이다.

7. 자기를 뿌리로 삼고 사는 자, 사람들과 친하여 사람을 뿌리로 삼고 사는 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8. <영적인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 혼의 주관을 받아서, 혹은 자기 혼을 거쳐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감동받고 느끼고, <육적인 것>은 자기가 세상의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느낀다. 영의 쪽과 육의 쪽 모두 귀를 기울여라!

9. <영 휴거>에 대한 설명은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작품을 만드는 자가 반복해서 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더 손을 대며 완성하듯이, 자기 영도 반복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만들 것을 만들면서 온전히 만드는 것이다. 만들수록 완전해진다.

10. 세상 모든 이치가 동일하다. 공원을 만들 때 잘 만들려면, 수십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는 만드는 자의

실력과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좌우된다. <영 휴거>도 수십 가지로 자기를 만들어서 휴거의 영이 되게 한다. 자기 실력과 능력과 기술에 따라서 자기 영이 만들어진다.

11.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을 알아도 못 만들고 자기 실력만큼만 만들어진다. <영 휴거>도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밖에 못 만든다.

12. 육의 세계에도 재벌, 정치인, 예술인, 종교인 운동선수, 학자 등 각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저마다 자기 실력에 의해 자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명예를 얻어 산다. <영 휴거>도 자기 실력에 의해서 개성대로 자기를 만든다. 자기 실력과 능력과 기술대로 자기 영을 만들어 간다.

13.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고 기른다. 그러나 다 잘될 수도 없고, 다 안될 수도 없다. 이 시대 섭리사의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14. 태 안의 생명은 고통은 겪지 않는다. 고통을 겪는다면 부모가 겪는다. 그러나 태 안의 생명이 태어나서 독립되면, 그가 존재하는 한 자신의 것은 자신이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처음에는 고통도 선생이 겪는다. 이제 모두 섭리의 태 속에서 나와 독립한 격이라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

15. 독립했을 때는 대신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것이 많다. 존재하는 자는 자체로 존재하면서 해당되는 것을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은 '영'에 있다. 고로 육이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고로 육도 영을 중심해서 사랑하여 영적 사랑을 이뤄야 된다.

1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깨끗해야 임하신다.

18. 성자는 '육'이라는 그릇에 담겨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래야 그 육을 통해 안 보이는 영체 성자를 알게 된다.

19. 구약 종에서 신약 아들로 부활되고, 신약 아들에서 성약 신부로 부활되었다.

20. 본래 원했던 뜻이 깨지면 쪼개는 역사를 하여 보다 깨지지 않은 쪽과 깨진 쪽을 두고 쪼개서 섭리한다.

21. 절대 가인 쪽은 보다 아벨 쪽을 향해서 간다.

22.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는 자기 육의 행실을 보면 안다.

23. 육신이 살아 있을 때는 세 살림살이를 한다. 육 살림살이, 혼 살림살이, 영 살림살이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한 살림살이가 된다. 육은 죽어서 썩고, 혼과 영이 일체 되어 영 살림살이를 한다.

24. 육신이 살아 있을 때는 육신이 육계의 삶을 사니, 육과 영이 별개의 삶을 사는 것 같다. 하지만 육이 죽으면 육의 블랙박스인 혼이 빠져 그 혼이 영과 하나 되어 사니, 그제야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일체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제야 영의 몸을 육의 몸같이 느낀다.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육에게 가 있느냐, 영에게 가 있느냐가 문제다. 육이 살아 있으면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에게 가 있고, 자기 육이 죽으면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영에게 가 있다.

<2013년 5월 10일 금요일 자체 기도회 잠언>

1. (주 편) 한 인생을 그리 크게 보지 말아라. 많은 꽃 중의 하나다. 많은 열매 중의 하나다. 많은 나무 중의 하나다.

2. (주 편) 큰 자가 어찌 그리 마음 변했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아무나 그 자리 임무를 주면 크게 된다.

3. (주 편) 사울 대신 다윗이 있고, 와스디 대신 에스더가 있다.

4. (주 편)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 배신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바꾸는 것도 있다.

5.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다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하였다. 하나님은 이들의 강박한 대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게 하셨는데, 외모가 뛰어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삼상8:4-22, 10:17-27). 사울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자로서 처음에는 잘 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역시 뜻이 없는 자였다. 자기 주관으로 행하는 교만한 자였다. 고로 제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결국 사탄이 주관하게 되었다. 결국 혈통적으로 뿌리가 있는 족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한 ‘다윗’을 뽑아서 그를 썼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역사하셨다. 고로 다윗은 능히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다스렸다. 그 자손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다.

6. 사람이 택한 자는 별로였다.

7.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 다윗, 솔로몬, 에스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고로 실패하지 않았다.

8. 주가 찍어 둔 자, 주의 마음에 드는 자가 있다. 주는 그를 미리 기르신다. ‘마음’, 곧 ‘중심’을 보고 택한다. 사람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9. 월명동의 나무들도 먼저 산의 많은 나무들 중에서 수형을 갖춘 나무를 뽑아 일단 그곳에 그대로 두고 가지치기를 하고 손질하며 키웠다. 그 중에 성자가 추천하여 3년 동안 산에서 키우다 가져 온 나무가 ‘야심작 사랑솔’이 되었다.

10. 선생이 그 옆에다 심은 소나무는 죽었다. 표상은 하나다.

11. 성자가 고른 나무나 사람은 영영하다.

12. 표상 나무, 표상 인생은 빛이 나고, 마치 산 정상 꼭대기같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명당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못 따라간다. 메시아도 그러하다. (초안 다시 그려 넣기 - 산 정상에 있는 나무만 ‘표송’인 것을 표현하고, ‘표송’이라고 자막 넣기)

13. 후자가 강하다. 표송이다. (초안 다시 그려 넣기 - ‘강하다’ 할 때는 전자 이빨이 약한 것과 후자 이빨이 강한 것 보여 주고, ‘표송이다’ 할 때는 전자 약하고 불품없는 나무와 후자 멋있는 표송을 보여 준다.)

14. 후자를 두 명씩 세워서 행한다. 한 명은 정신적으로 세우고, 또 한 명은 육적으로 세운다.

15. ‘뇌 과일’의 값은 일억 천만금이고, ‘지체 과일, 곧 육 과일’의 값은 사과 값이다.

16. ‘뇌 과일’은 온 세상과 다 통하고, 하늘나라까지 통한다.

17. ‘뇌 과일’로 비교하면, 온 세상의 누구라도 당할 자가 없지만, ‘육 과일’로 비교하면, 동등하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뇌 과일’로 측정한다. 곧 ‘마음’으로 측정한다.

18. 국가대표가 자기 개성의 메달로 비교하면 아무도 못 따라오지만, 다른 종목 국가대표와 비교하면 동등하다. 이와 같이 사명자도 그러하다. 그러니 섭리사 모두 ‘육 과일’로 놀지 말고, ‘뇌 과일’을 개발하여 성자를 대하고 세상을 대하여라.

19. ‘육 과일’로 보면 모두 동등하다. ‘뇌 과일’로 보면 사명대로 본다. 고로 ‘뇌 과일’을 중시하여라.

20. 아담과 하와는 ‘육 과일’로 놀다가 발바닥의 때가 같이 사는 사탄에게 놀아났다. 고로 아무것도 아닌 육과 영이 되었다. 귀한 자도 ‘육 과일’로 놀면 운명이 그리 된다.
21. ‘뇌 과일’과 ‘육 과일’은 크기도 비교가 안 되고, 높이도 비교가 안 된다. ‘육 과일’은 육의 깊은 계곡 속 땅 바닥에 있고, ‘뇌 과일’은 소(小)우주의 최고 정상에 위치해 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가깝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뇌 과일’을 궁으로 삼고 오신다.
22. ‘뇌 과일’은 육계와 영계를 총괄하여 1억만 가지를 느낀다. 그러나 ‘육 과일’은 한 가지만 느낀다.
23. ‘뇌 과일’은 1억만 가지 줄기이고, ‘육 과일’은 한 가지 줄기다.
24. ‘뇌 과일’은 왕이고, 육 과일은 부림을 받는 식순이와 같다. 왕이 식순이와 놀면 권위가 상실된다.
25. ‘뇌 과일’은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육신이 행하게 하고, 그로 인해 혼체와 영체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육 과일’은 100년이 가도 생각하지 못한다.
26. ‘뇌 과일’은 월명동 뒷동산이고, ‘육 과일’은 아마존 밀림이다.
27. ‘뇌 과일’은 먹고, 듣고, 숨 쉰다. 그러나 ‘육 과일’은 쓸 내용이 없구나.
28. ‘육 과일’로 놀면 거지같이 놀고, ‘뇌 과일’로 놀면 왕같이 논다.
29. ‘육 과일’로 놀던 자는 육도 영도 망했다.
30. 옛날 왕들은 과일 장사를 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살았다. 거기서 먹고 자다가 결국 병들어 죽었다.
31. ‘뇌 과일’을 개발하여 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자들은 성자 주님이 끌어안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서 영원히 신부로 삼고 사신다.
32. ‘뇌 과일’을 놀리지 말고, 성자를 사랑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라. 그러면 육 과일도 빛난다.
33. 성자의 뇌는 오직 사랑덩이다. 고로 성자와 사랑 교통 안 하면 통하지 않는다. 먼저 사랑의 문을 따고 성자와 사랑으로 교통하여 통해야 성자께서 뇌 과일의 사랑의 맛을 보고 천국 과일을 먹게 하신다.
34. 하나님은 인생 모두에게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사랑 과일’을 주셨다. 그 과일 하나로 인생 운명이 좌우되고, 그것을 잘 써서 천국 문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35. ‘육 과일’로 놀던 자들은 섭리사에서 사라져서 흑암 계곡에 집을 짓고, 칠흑 같은 암흑에서 자기를 핀 자들과 사탄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혼체를 가지고서 혼계와 영계를 견학해 보아라.
36. ‘뇌 과일’로 생각의 펜을 굳게 잡고 새벽 영계의 길을 달려가니, 생명수가 넘쳐 흘러간다. 스쳐가는 영계의 풍경을 잠언으로 읊어 쓰자꾸나.
37. 뇌 과일이 빛나는 자, 흰옷을 입고 한 명 한 명 휴거의 길을 걸어간다.
38. 육 과일은 천국으로 휴거되지 못한다. 뇌 과일, 영 과일만 천국으로 휴거된다.

39. 혼체로 영의 세계를 보고, 육의 세계와 연관 지어 깨닫기다!
40. 다 버리고 다 취하기다!
41. 육의 것을 다 버려야 영의 것을 다 얻는다.
42. 서쪽을 버려야 동쪽으로 간다. 일부는 없다.
43. 헌신을 버려야 새 신을 신는다.
44. 뇌 과일이 아니면, 육 과일이다. 선택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좌우된다.
45. 일부 천국은 없다. 완전한 천국이다.
46. 천국은 소망이 없다. 희망도 없다. 소망과 희망을 다 이뤄서 누리는 세계다.
47. 희망으로 사는 자들은 아직 천국을 얻지 못한 자들이다.
48. 얻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49. 날이 새기 전에 영계의 이 산, 저 산을 다 누비면서 일억 천만금 같은 성자의 말씀을 찾아본다.
50. 희망만 짝 차서 사는 인생은 안타깝다.
51. 희망 없이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희망이 없고 다 이루어 누리고 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희망을 다 이루 었단 말이나.
52. '오직 성자와 그 분체와 일체'다.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53. 오직 성자 사랑, 메시아 사랑이다. 그래야 생명나무가 된다. 성자와 메시아와 일체 되어 완성하여라.
54. 세상을 사랑하고 육만 사랑하는 자들은 뇌 과일에 희망만 차고 넘쳐 살아간다.
55. 희망을 다 이룬 자는 성자와 같이 신부의 몸이 되어 누리며 살아간다.
56. 모두 자기 중심으로 희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이뤄져 봤자 뻔 한 희망 빛에 허황되게 살아간다. 그나 마도 인생 해가 서산마루에 기울고 있다.
57. 바위를 들어서 세우려면 뇌 과일인 중장비로 해야 할 수 있지, 육 과일인 팽이와 삽과 손과 발로 되겠느냐. 바위가 킁킁대고 웃어댄다. (크레인으로 돌을 드는 실제 영상 보여 주면서 옆에 자막 <뇌 과일> / 팽이와 삽과 손과 발로 돌 을 드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옆에 자막 <육 과일>
58. 음부에서 쇼를 하고 잔치하며, 사탄 마귀들이 오라고 초청한다. 천국에서 잔치하며, 하나님이 오라 해서님과 같이 가고 있다. 인 사탄들 물러가고 영 사탄들 꼬꾸라져라!
59. 음부에서 잔치하는 것을 저 멀리에서 쳐다보니, 술과 담배로 썩는 냄새 자욱하고, 잔칫상에 썩은 과일 차려 놓고 먹으면서 킁킁대고, 여기저기 영의 몸이 푹푹 썩어 피골상접 되었구나. 지옥, 무저갱, 음부에 사는 자들이 출연하여 한 탄하는 소리가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들려오고, 한 맺히고 애처로운 고통 소리 슬피 들려온다. 세상에서 육체 가지고 썩는 짓을 해 대더니 그리 되었구나. 내 그럴 줄 알고 내 말 들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도 가지 말라 손목을 부여잡

고 끌어 왔을 때 돌이키고 따라온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간다. 뿌리친 자는 모두 저 지경이 되었구나. 배신자들, 내 가슴을 그리도 쓰리게 하더니만 저렇게 되었구나. 그곳에서 임시로 있다가 곧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갈 텐데, 그곳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구나. 영원한 불바다에 간다면, 저 짓마저도 못 한다. 거기 가면 영원토록 뛰면서 물 끓듯이 하는 거다. 일생동안 고생해도 몸부림으로 천국 길을 갈고 닦고 가는 거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성악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오늘 영광 돌리면서, 지구촌을 위한 기도, 섭리사를 위한 기도 급히 하고 빠져 나와 육의 세상 가야 한다. (영계에서)

60. 영이 온전하게 되면, 혼도 마음도 육도 삶에서 천국이다.

61. 땅에서 과정 중에 천국을 이루면서, 이미 땅에서 육신이 휴거되어 성자와 사랑 일체 되어 육적 천국을 이루고, 마음 천국, 생각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이다. / 그러면 혼과 함께 영이 점점 온전하게 변화되어 혼적 차원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가장 먼저 생을 마감하면, 혼은 자기 영과 일체 되어 영원한 영의 천국으로 이동되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62. 사람을 창조한 대로 육, 마음, 혼, 영 천국이다. 창조주와 성자와 메시아의 뜻대로 살면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63. 육신이 금방석에 앉고, 천하에 둘도 없는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아도 마음·정신·생각이 지옥이면 지옥의 삶이다.

64. 육과 마음이 아플 때는 궁궐에서 살아도 괴로운 지옥이다.

65. 하루는 외국에서 마음 지옥이 되었다. 마음이 너무 안 잡히고 불안·공포·두려움에 안절부절 못 했다. 그래서 정원에 나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옆의 제자에게 “마음이 괴로우니 정말 지옥이다. 너는 어떠냐?” 하니, 그 제자는 “저는 평안해요. 왜요? 선생님, 걱정 말아요. 다 잘되니까요.” 했다. 선생이 “너는 모르니까 걱정 안 되고 마음 편하지....” 하니, 제자는 “선생님, 기도할까요?” 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니, 불안한 마음이 좀 덜했다. ‘왜 이런 불안함이 들까?’ 생각할 때 ‘마음이 지옥이다. 마음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곳에서 3일 있다가 긴긴 세월 고대하던 꿈이 이루어져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 이때 선생이 묶여 있을 때였다. 다른 주 관원에서 갇혀 있을 때였다. 3일 후에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서 수천 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66. 마음이 편하면 지옥에 가 있어도 지옥 같지 않고, 육에 갇혀 있어도 내 집 같고, 자기가 원해서 좋아서 있는 것 같다.

67. 자기가 스스로 지옥같이 생각의 방향을 잡으면 지옥 같고, 생각을 천국같이 하면 편안하고 천국 같다.

68. 성자가 함께하시고 그 마음에 성자의 마음이 충만할 때는 천국 마음이 된다.

69. 환경은 때에 따라서 좋거나 나쁘다. 그러나 자기 마음은 항상 변함없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성자의 마음과 일체 되어 ‘생각’만 제대로 하고 살면 늘 천국이다. 그러나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성자와 일체다. 성자와 진리와 사랑 일체다. 주와 일체다.

70.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만히 들어와 마치 자기 마음처럼 쓴다. 그러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같이 생각되고 깨달아진다. 그러니 수시로 성자를 부르며 자기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여라. 또 자기 경호 천사를 불러서 확인하여라. 또 사탄이 와서 나쁜 파장을 보내는지 확인하여라. 선생도 내 천사에게 수시로 물어보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탄이 왔다고 할 때가 있다. 천사에게 대기하라 하고 “사탄 모르게 내 옆구리의 도끼를 가져다가 사탄의 머리통을 멋지게 쪼개고 와라! 두 쪽 작품을 성자께 바쳐야 한다!” 하고 시킨다. 천사는 그 재미로 내 옆에서 나를 도우며 살아간다.

71. 사탄에게 틈을 안 주니, 사탄들이 다 잠들었다. 그래서 선생은 천사와 같이 사탄의 가랑이를 잡고 찢어서 두 쪽을 냈다. 천사는 내게 “이름만 ‘쪼갠 석’ 자가 아니라 정말 행동이 그러하네요.” 하기에 “그러하다. 나도 이 재미로 밤낮

근신한다.” 했다. 천사는 “섭리인들의 마음과 행실이 사탄 앞에 졸고 있으니, 사탄들이 끌고 가서 흑암 속에 매어 놔요. 그 재미로 사탄들이 쫓아다녀요.” 하고 말해 주었다.

72. 천사가 사탄이 온 것을 알고 처리해 주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자기가 수종을 드는 사람의 사탄을 멸하는 실력이 놀라고 가만히 둔다. 마치 모기가 어린아이에게 와서 피를 빨아먹어도 부모가 그냥 놔두듯 한다. 모기가 어린아이에게 날아올 때, 모기가 물기 전에 엄마가 모기를 잡아 죽이니, 아이는 엄마를 보고 “멋져요! 모기 사냥 잘해요!” 하며 칭찬한다. 엄마가 잘 때 모기가 날아오니, 어린아이의 눈이 별빛같이 빛나면서 모기들을 잡아서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듯이 쌓아 났다. 엄마 젖을 먹어 가면서 자리를 뜨지 않고, 엄마가 모기에게 한 번도 안 물리게 다 잡았다. 엄마가 잠에서 깨 보니, 아이가 모기를 잡아 태산같이 쌓아 놓았다. 엄마는 한 군데도 안 물렸다. 엄마 젖만 먹고 사는 아이도 당해보고 배우면 이러하니, 모두 배워서 그리하여라. 하늘 신부들아! 사탄 모기들 잡아서 태산같이 모아 쌓아라. 1초라도 방심하지 말고 사탄들을 사냥해 와라. 하늘 말씀의 젖을 먹어 가며 온종일 잡아대어 사탄의 씨를 말리자! 그리고 쓰레기 차에 실어 보내자!

73. 새벽에 잠에서 깨서 눈만 뜨고 있노라니, 사탄이 내 옆에서 천사같이 둔갑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고로 묻지 않고 말씀의 도끼로 내려치니, 목이 날아가고 몸통이만 굴러간다. “너 사탄이냐?” 물으니, 사탄은 대답을 못 하고 도망간다. (새벽에 선생님이 잠을 깨고 눈만 뜨고 있으니, 사탄이 천사로 둔갑해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 그리기. / 말씀의 도끼로 내려치니 목 날아가고 몸통이만 굴러가는 모습 실감 나게 그리기. / 그리고 “너 사탄이냐?” 물으니, 사탄은 대답을 못 하고 도망가는 모습 그리기) 섭리인들아, 모두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의 검을 휘날려라! 자기가 게으르고 죄를 지음으로 자기가 사탄을 키운 거다. 잡초 뽑듯이, 매일 사탄을 없애라. 사탄을 옆에 두고 있으면, 네가 수고해도 사탄이 네 수고를 다 먹어 버린다. 그러니 매일 시간마다 사탄을 잡아 없애라! (섭리인들 새벽 기도하는 영상이 나오면서, 한쪽 위에 기도하며 말씀의 검을 사탄에게 날리는 모습은 그림으로 표현하기.)

74. 성자의 마음은 천국 마음이다.

75. 지상에서 성자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육도 마음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자기 영을 천국의 영으로 만들어 천상 천국에서 가서 영원히 누리며 산다.

76. 봄과 여름은 지상이고, 가을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여라. 과일나무는 봄과 여름에 큰 대로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사람도 지상에서 큰 대로 그 영이 천국에 가서 살아간다.

77. 사람을 만드는 것같이 더딘 것도 없다. 빌딩도 몇 년이면 완공한다.

78. 긴긴 세월 동안 자기 영혼 만들기다.

79. 휴거 때는 호각을 불듯 순간 영들이 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육신의 행위로 점점 영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빨리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 성자께서 번개같이 빨리 오셔도, 신부들은 느려서 뒤뚱거린다. 고로 만들 시간을 주는 것이다. 차를 탈 때 가장 먼저 준비하고 줄을 서 있는 앞의 사람이 먼저 타고, 뒤의 사람은 늦게 타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더 늦게 타듯이, ‘영 휴거’ 때도 그러하다. ‘영 휴거 기간’은 개인에게 순간의 한 기간이다.

80. 과일도 먼저 익은 것을 따고, 나중에 익은 것은 뒤에 따다. 고로 따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 휴거 때도 온전히 준비된 영부터 늦게 준비된 영까지 휴거되는 기간이 순리적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들은 먼저 부활되어 따랐고, 늦게 온 자들은 늦게 알고 따랐다. 휴거 때도 먼저는 본체가 가장 먼저 왔기에 성자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먼저 크고, 그다음에 성자의 말씀을 세상에 외친다. 이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따르는 자들은 ‘육적 휴거’가 되고, 그러면서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며 휴거의 영으로 만든다. 그러다 성자가 오시면, 온전히 준비된 영들은 ‘영적 휴거’가 되어 천국에 오른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알고 따른 자들 순서로 차례대로 휴거된다.

81. 처음에 휴거된 자와 나중에 휴거된 자의 차이는 ‘한 기간’이다. 개개인으로 보면, 그 기간의 차이가 아주 짧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은 일억 천만금 같은 말씀이다.

82. 50명이 버스를 탈 때 전체가 모두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분이다. 그러나 그 50분만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가 버스에 타는 시간은 1분이다. 남이 버스에 타는 시간까지 자기 시간으로 계산하여 여유 부리다가는 못 탄다. 소 주인이 앞에서 소의 목을 묶어 잡아당겨 소가 끌려가듯이 한눈팔지 말고 주께 끌려가라. 폭탄의 안전핀을 뽑아서 던지고 도망치듯, 다이너마이트 줄에 불을 붙이고 자리를 뜨듯 달리면서 급히 휴거 열차에 타라. 그러나 급하게 뛰다가 넘어지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니 조심해서 뛰어라. 그러나 도망치듯 해야 한다. 휴거를 이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83. 성자가 아무 때나 도적같이 와서 “너는 지금 무엇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실 때, “제 육은 이 일을 하고 있어도 휴거에 집중하여 이 일도 휴거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자만 휴거에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때가 이런 때다.

84. 생각만 해도 일이 되고, 생각만 해도 변화되기도 한다. 온몸을 꽁꽁 묶어 놔도, 손발이 꿈쩍 않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 성자와 100% 사랑의 교통을 하고 일체 되면, 혼도 영도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육의 각종 일은 육이 먹고 살기 위해 하더라도 ‘생각’은 오직 성자에게 집중하여 대화하고 간구하며 성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라. 이는 휴거를 위한 일억 천만금 같은 방법이며 말씀이다.

85. 가령 네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성자를 찾고 성자와 사랑 일체 되어 살면, 육이 가만히 있어도 육도 행한 것이 되어 있다. 혹시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성자를 생각하고 사랑한 대로 육도 같이 일한 것이 된다. 그러니 이를 알고 믿고 행하여라. 이는 일억 천만금 같은 말씀이다.

86. 시간이 많은데도 시간에 쫓겨 휴거에 실패하는 자도 있다. 실컷 여유를 부리다가 시간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 못 해서 휴거에 실패한다.

87. 다 해 놓고 놀아라.

88. 지금까지 수만 시간, 수십만 시간을 투자하여 행해 놓고, 마지막 1분 1초가 늦어서 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1분 1초도 귀히 써서 휴거의 선을 넘겨 놓고, 나중에 숨을 몰아쉬어야 할 때다.

89. 지금은 말씀 듣기가 바쁘게 행해야 될 때다. 그만큼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있으면, 뇌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서 결국 행하지 못하게 된다.

90. 긴장 안 하면 환난 풍파가 자꾸 일어나 긴장하게 하니, 환난 풍파로 인한 고통을 안 당하려면 계속 긴장의 마음을 품고서 뛰어라! (멋있게 뛰고 달리는 모습 만화로도 표현하고, 치타가 멋있게 뛰는 영상도 넣기)

91. 안 뛰어 버릇하면 육도 혼도 영도 숨이 가빠서 못 된다. 매일 뛰는 양을 조금씩 높여야 된다.

92. 지금은 휴거를 위해서 그동안 기다린 자들에게 매일 수시로 휴거의 진수성찬을 주고 있다. 먹고 뛰면 된다. 이때 잠자고 조는 자는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한다. 말씀의 진수성찬이다.

93. 사랑이 목적인 자는 자기 사랑의 상대가 하는 사랑의 말과 행동만 귀에 들리고 눈에 띈다. 다른 어떤 말과 행동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아닌 다른 말과 행동은 오히려 거슬린다. 휴거의 주인이신 성자도, 땅의 분체도 ‘휴거’가 목적이니, 오직 휴거에 대한 말과 행동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인다.

94. 여유 있을 때 한 차에 다 태우려고 전체를 신경 쓴다. 시간에 쫓겨 전체가 못 타게 생겼으면, 가까이 와서 앞에 온 자만 신경 쓰고 태운다. / 휴거되는 이 급한 때에는 시간이 갈수록 조급하니, 분체를 제대로 아는 자에게만 손을 내밀고 잡아당겨 준다. 모르는 자에게 언제 알려 주고 같이 가겠느냐. 분체를 아는 자는 당기기만 하면 되니,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손이 간다.

95. 세상에서 본체가 본체를 모르는 자를 끌어안고 천국에 갔다 하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성자는 바람으로 쭉정이를 날리듯 날려 버리신다. 고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다. 본체를 알아야 알곡 영이 된다. (선생님이 본체를 모르는 사람을 끌어안고 살다가 천국에 데리고 가는 모습 / 하나님과 성자 앞에 서니, “헛수고했네.” 하시며 지상으로 날려 보내니 추락하는 모습 : 잘 그리기. 초안 속 글씨들 살려서 넣기)

96. 성자가 지상의 메시아로 본체로 쓰는 자는 한 명이다. 성자가 그를 본체로 쓰면서 그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그는 보이는 성자의 육이다. 전능하신 성자 영체는 따로 있다. 성자는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중 한 분이다. 구원받을 자들이 육의 세계의 사람들이니, 성자는 땅에서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자기 육으로 삼고 통역관으로 삼고 말씀하신다. 본체는 사람이니,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된다. 고로 성자는 그를 통해 악수도 해 주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대접도 해 주고, 사랑도 해 주고, 책망도 하고, 예언하고 하고, 심판도 하고, 때를 말해 주기도 하고, 온 세상의 작고 큰일들에 대해서 말해 준다. 그러나 본체 한 명 가지고 일손이 모자라면 100명, 1000명, 10000명을 모아 놓고 본체를 통해 교육시켜 뜻을 알게 하시고, 10000명을 다 보내서 본체를 중심으로 하여 지체로 삼고 전도하고, 관리하고, 할 일을 하고, 도우신다. 땅의 본체 역시 제자들을 가르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지체로 삼고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어 사역을 하게 한다.

97. 성자 본체는 자기 육이 못 가는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에 갈 때, 육과 의논하여 자기 혼을 육의 본체로 삼아서 사역하게 한다. 자기 영에게 이야기하여 자기 혼을 부탁하여 혼이 목적을 알고 행하게 한다.

98. 우리 육신에게는 본체 입장인 혼과 영이 있다. 성자께도 혼적 입장인 본체가 있다. 성자는 자기 본체의 ‘육과 혼과 영’을 메시아 차원에서 쓰신다. 고로 일반인들에게는 성자 본체가 다니면서 성자를 나타낸다. 성자는 전지전능하니 한번에 인원수 제한 없이 모두에게 마음대로 나타나신다. 가끔 성자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자의 혼체’를 본 것이다. ‘성자 본체 영체’는 낮은 인간들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없다. 성자는 ‘혼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지상의 일을 다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성자 본체는 천사장이 나팔 부는 재림 때, 휴거의 영을 천국으로 휴거 시킬 때나 특별할 때만 행하신다. ‘성자의 혼체’도 혼돈되기에 잘 안 보여 주신다. 성자 본체를 봤다고 할까봐서다. 고로 성자는 ‘그 본체의 혼체나 본체의 영체’를 쓰고 나타나신다. 성자 본체는 너무 안 쓰면 아까우니, 차원이 높게 행할 때는 세상의 짝꿍인 ‘본체의 영’을 쓰고 나타나 행하신다. 고로 ‘본체의 영’을 보면, 성자 본체의 영이 그 영을 쓰고 행하는 것이니 꼭 물어봐라. “성자 본체가 본체의 영을 쓰고 행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라. 성자는 세상의 구원자로 쓰는 본체의 ‘육’을 쓰고 행하고, ‘혼’을 쓰고 행하고, ‘영’을 쓰고 행한다. 그리고 때마다 시대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합당한 자들을 본체로 삼고 ‘성자 혼체’가 나타나 역사하기도 하신다. 자기가 성자께 쓰일 때는 집중해서 생각하면 ‘지금 성자가 나를 쓰시는 구나.’ 하고 눈치 챈다. 그때그때 꼭꼭 물어보고 대화하면 본인이 알게 되니, 더 힘을 내서 행하게 된다. 고로 성자가 더 역사하면서 쓰신다.

99. 이제 갓 섭리사에 온 신입생 한 명이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 왔다. 내용은 이러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못 오는 상황이었었는데, 자기와 같은 학교 친구라서 주일말씀을 듣고 핵심을 적어서 설명해 주려고 학교에서 선생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면서 그 친구를 찾았는데 없었다고 했다. ‘오늘은 못 찾겠다.’ 하고 돌아서니, 그때 마음에 이런 말이 들렸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네가 그 생명 만나는 것을 포기하면 나 혼자 어떻게 하나. 네가 선생 육인데...” 하고 선연하게 깨달음이 왔다고 했다. 그래서 “찾아도 없어요.” 하니, “네가 선생에게 편지할 때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끝까지냐. 너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니까 네가 찾아서 만나야지.” 했다고 했다. 결국 끝까지 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말씀을 전해 주고,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풀 것도 풀어 줬다고 했다. 이같이 신입생에게도 선생의 ‘혼’이나 ‘영’이 가서 행한다. 이 신입생은 선생이 편지로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나와 같이 생명을 관리하자.” 했는데, 선생의 육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꺾어 보니, 보이지는 않지만 선생의 영이 와서 할 말을 다 하고, 또 물어볼 것을 물어보니 대답해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확인 편지를 보내 왔다. 선생의 육이 못 가니 ‘혼’이 가고 ‘영’이 간다. 선생의 육이 약속하고 혹여 잊어도 ‘혼’이 할 일이고 ‘영’이 할 일이라서 선생의 ‘혼’이 가고 ‘영’이 가서 행한다. 모두 그리 알고 믿고 행하여라. 수만 명에게라도 내 혼과 영이 가서 행하니 믿고 행하여라. 내 혼과 영이지만, 성자께서 행하시니 선생의 혼과 영을 쓰고 얼마든지 동시에 역사하신다. 방송국에 한 사람이면 지구 세상 전체에게 각각 화면으로 다 나타난다. 성자와 본체와 같이 하기도. 육보다 혼과 영이 더 잘 통한다. 그러니 선생의 혼과 영을 부르고 이야기해 봐라. 같이 해야 쉽다. 본체 인봉을 떼 줬으니 모두 본체를 써 먹어라. 본체를 못 쓰는 자는 너무 약하다. 또한 네 육 혼자 하지 말고 자기 본체인 혼과 영을 써라. 1억 천만금짜리 말씀을 해 줬는데도 왜 안 써 먹느냐. 사탄이 자기 영의 목을 조르고 있을지도 모르니, 수시로 자기 혼을 부르면서 자기 영이 잘 있는지 물어봐라. 사탄이나 악한 영들

이 자기 영을 건드리면, 천사와 함께 쫓아가서 사탄과 악한 영들의 머리채를 잡고 초전박살 내라고 자기 혼에게 시켜야 된다. 육이 혼과 자주 대화해야 혼이 좋아서 강해지고, 좌우에 말씀의 검을 차고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행하며, 악한 자들도 돕는다.

100. 인생 일생 살면서 자기 혼과 대화 한 번 못 해 보고, 억울하게 무지하게 죽지 말아라.

101. 종교 역사 6000년 만에 성자가 그 몸인 본체를 통해서 ‘혼’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도 혼과 친하지도 않고, 혼을 부르지도 않고, 혼과 대화하지도 않고, 혼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진실로 말하노니, 미련하다. 무지하다. 그러다가 육이 사고를 당할 때, 혼이 무뎌서 육에게 못 전하여 큰일을 당하여 육신이 고통을 받는다.

102. 스마트폰만 제일이나? 스마트폰 화면만 보지 말고, 혼을 사용하여 혼계와 영계의 화면을 보아라.

103. 혼과 통하면 일순간에 지구 세상과 영의 세상의 화면을 본다. 혼체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10조의 가치를 얻게 된다. 지능이 낮아서 높은 단위를 모르느냐. 10조면, 10000원 짜리로 길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루 종일 차로 가도 못하는 길이다. 이같이 가치 있는 영계의 비밀을 가르쳐 줘도 시장의 혼한 물건같이 생각하느냐. 그런 자에게는 가르쳐 주기 아깝다.

<2013년 5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쪼개 놓으니 아름답다. 쪼개 놓으니 깨끗하고, 멋있고, 마음 감동된다.
2. 쪼개 놔야 아름답고 멋있고 조화롭다.
3. 쪼개 놔야 먹을 수 있다.
4. 쪼개 놔야 구분할 수 있다.
5. 지옥 - 무저갱 - 음부를 모두 쪼개 놓았다. 고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공의롭게 각각 해당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6. 천국 - 낙원 - 선영계를 모두 쪼개 놓았다. 고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공의롭고 만족하게 각각 해당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7. 쪼개야 받는다. 쪼개 주는 자에게 가서 쪼개 가지고 와라.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쪼개서 창조하셨다. 인간도 만물도 그러하다.
9. 쪼개기, 나누기다.
10. 쪼개 놓고 제분하여 삼키는 것이다.
11.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쪼개져서 존재한다.
12. 쪼개 놔야 상호 존재한다.
13. 쪼개 놔야 천국도 존재한다.
14. 쪼개고 또 쪼개니 황금도 나오고,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아름다운 자도 나왔다. 이와 같이 쪼개고 또 쪼개니 ‘천국’도 나왔고, ‘의인’도 나왔고, ‘하늘의 신부’도 나왔다.

15. 돌 속에 박힌 황금도 쪼개야 나온다.
16. 쪼개는 하나님이다.
17. 매일 쪼개는 하나님이다.
18. 새들도 먹으려면 쪼개고 또 쪼갬다.
19. 먹기 전에 쪼개기다.
20. 쪼개는 것이 '분별'이다.
21. 개성대로 쪼개어 존재하게 하여라.
22. 쪼갤 것을 안 쪼개고 그냥 두니, 서로 힘들어하며 존재하지 못한다.
23. 월명동 자연성전도 개성대로 쪼개서 개발했다.
24. 질대로 쪼개라. 양대로 쪼개라. 형상대로 쪼개라. 차원대로 쪼개라.
25. 개미와 코끼리를 쪼개 놓아라. 안 그러면 코끼리가 개미를 밟아 죽인다.
26.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대로 더 좋은 차원으로 쪼개져서 오른다.
27. 저마다 때가 되면 알곡을 싸서 알곡이 되게 한 거죽을 쪼개 내듯이, 자기 거죽을 쪼개 내야 된다.
28. 때가 되면 알곡을 싸고 있던 거죽을 벗겨야 되듯이,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29. 알곡만 기를 수 없다. 거죽이 알곡을 싸고 있기에 알곡을 기르게 된다. 고로 거죽이 영양분을 빨아 먹는다고 아깝다 하지 않고 퇴비하여 기른다. 이와 같이 육을 크게 길러서 육을 통해 혼과 영을 길러라. 육을 통해서 결국 '혼과 영'이라는 알곡을 거두게 된다.
30. 행한 대로, 만든 대로 쪼개지는 자동 역사다.
31. 인간은 신과 다른 육신이다. 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기본으로 주어 인간도 그 유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고 창조하게 해 주셨다.
32. 흙과 나무와 돌을 주니, 자기 재능대로 만들어서 각종의 것을 창조하게 되었다.
33. 만났으면 행했는데, 못 만나서 못 행했다. 그러니 다른 방법으로 행하여라.
34. 안 되는 쪽으로 가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아라. 전능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와 동행하면 합당한 것을 행하게 해 주신다.
35. 100분의 1만 가능해도 구원한다. 이는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 한 의사는 살리려 하듯이,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100분의 1이라도 살려고 해야 주도 살릴 수 있다. 고로 구원할 수 있다.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죽으면서 숨 쉬는 격이다. 자기 죄를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느라 100분의 1밖에 힘이 없어서 못 할 때는 자기가 살려고 하니 주도 구원한다 함이다.

36. 쓰레기가 되면 청소하듯이, 신앙도 그러하다. 방에 쓰레기를 그냥 두면 방에서 생활을 못 하듯이, 신앙에서도 죄도, 쓰레기도 그냥 두면 신앙생활을 못 한다. 고로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한다. 그중에서 재활용할 것은 달리 쓰기도 한다.

<2013년 5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욕'을 가지고 욕적으로 행하면 욕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행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욕적으로 행하면 욕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행하면 영적인 사람이 된다.
2. 하루를 살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되고, 욕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그것은 욕적인 것이 된다.
3. 똑같은 성자의 일도 자기 생각으로 욕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욕적인 자가 되고, 성자의 뜻대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영적인 자가 된다.
4. 성자의 일도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욕적인 자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욕적인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자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중심으로 욕적으로 행하는 자의 것은 안 받으신다. 그 공적도 욕적으로 끝난다.
5. 성자와 그 분체의 뜻대로 영적으로 행하여라!
6. 전도하는 것도 욕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 생명을 기를 때도 욕적으로 기른다. 고로 그 생명도 욕적인 자가 된다.
7. 자기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성자의 생각과 뜻에 맞게 생명을 전도하여, 시대 말씀으로 영적으로 가르쳐서 관리해야 영적인 자가 된다. 말씀을 전해 줄 때도 자기 방법으로 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명을 인도하면서 성자의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된다. 오직 성자의 뜻으로 영적으로 가르쳐야 그 생명이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섭리사에서 큰 자가 되어 크게 쓰인다.
8. 영적인 자는 일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영적으로 했는지 욕적으로 했는지 알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했는지 욕적인 사람이 했는지 알 수 있다.
9. 욕적인 자는 꿈을 꾼도 욕적인 세상 쪽의 것을 많이 꾸게 되고, 영적인 자는 영적인 쪽의 것을 많이 꾸게 된다.
10. 자기를 영적으로 만드느냐, 욕적으로 만드느냐는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에 달려 있다.
11. 보다 영적인 자도 자기 생각과 혼과 영이 성장할수록 더 영적인 자가 된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운동에 능하더라도 약하듯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영의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약하다. 생각과 혼과 영이 성장해야 된다. 연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고 기도하면서, 육신이 성장하듯이, 어린 나무가 성장하듯이, 어린 과일이 크듯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키워야 된다.
12.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계획적으로 선포하시는 새 시대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자가 된다.
13.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100% 알고 믿고 그와 일체 되어 살면서, 구원자를 보내 주시어 항상 그 옆에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성자를 제대로 믿고 알고 성자와 교통하며 일체 돼야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된다.
14. 구시대 말씀을 듣고서는 구시대급 차원밖에 안 된다.

15.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가 영적인 자였다. 그러나 그 시대급의 영적 차원이었다. 4000년 후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가 영적인 자였다. 이는 모세 때보다 새 시대급의 영적 차원이었다. 이 시대는 신약 2000년 동안 신앙이 발달됐으니, 이 시대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에 해당되게 영적인 자가 된다.

16. 구약의 아담과 하와 이후, 모세 이후 신앙은 계속 발달되었다. 4000년간 발달되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지나간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예수님 주관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자들은 구약 율법 속에서만 발달한 것이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만 새 시대급의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신약 2000년 동안 영적으로 발달시키며 왔다. 그리고 신약 2000년 동안의 영적 발달도 신약 주관권의 영적 발달이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관권으로 와야 새 역사 영적 발달을 하게 되어 영적인 자가 된다.

17. 돌포도나무는 아무리 세월이 흐르며 커도 역시 돌포도나무에 해당되는 성장을 하지,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참포도나무가 되지 못한다. 참포도나무를 접붙여서 커야 성장하면 참포도나무가 된다. 이와 같이 구시대는 아무리 역사가 흘러도 역시 구시대 주관권이다. 고로 발달되더라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한다. 구시대 구약과 신약은 영적이어도 그 주관권의 영적 차원이다. 아무리 차원을 높여도 구시대 영적 차원을 못 벗어난다.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차원을 높일까? 하나님이 새 시대 성약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 새 시대로 와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새 시대에서만 '영적인 새 말씀'이 선포된다. '영적 말씀'이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다 근본으로 역사하시며 하시는 말씀이다. 삼위일체는 이 말씀을 중시하여 새 영적 역사를 펴 나간다.

18. 구시대는 구시대에 해당되는 영적 역사다. 새 시대는 새 시대에 해당되는 영적 역사다.

19. 1500년 전, 1000년 전의 문화·예술·학문과 이 시대 현대 문화·예술·학문을 보아라. 1000년 전만 해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서 현재보다 뒤떨어져 있다. 종교도 그러하다. 옛날에는 원시인적 삶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섬겼다. 영적인 것도 그러했다.

20. 육적이면 육적으로만 발달시키고, 영적이면 영적으로 발달시킨다.

21. 구 역사는 크고 대단해 보인다. 왜? 이미 성장되어 왔기 때문이다. 새 역사는 작게 보인다. 왜? 지금 성장하며 가기 때문이다. 역사를 축소해서 자기 인생으로 보자. 10세 전까지 보고, 20세 전까지 보고, 30세 전까지 보고, 40세 전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10년씩 더 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것을 보아라. 성장되기 전과 성장한 후의 삶이 다르지 않느냐. 새 역사도 그러하다. 처음 시작하여 얼마 안 됐을 때는 행한 것이 적다. 그러나 새 역사가 성장되면 구역사가 새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

22. 옛 시대는 걸어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가마를 타고 다녔다. 새 시대는 차를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비교가 되느냐? 신앙 역사도 마찬가지다. 구시대 영적 세계와 새 시대 영적 세계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내신 구원자도 다르고, 말씀의 차원도 다르고, 고로 영적인 차원도 다르다.

23.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인간이 시대 말씀을 듣고 온전해지면서 삼위일체를 닮아 최고 영적인 자로 성장되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것'이다. 이로써 '최고 영적으로 발달되어 삼위일체와 사랑하며 사는 것'을 목적하고 역사하신다. / 그러니 옛 시대에 매이지 말고 새 시대에 속하고, 새 시대에 속한 자들은 보다 완전하게 새 시대에 속하여 영적으로 행해라. 그래야 휴거된다.

24. 누구나 육이 영적이지 않은데,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25. 아무리 구시대 안에서 신령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환상을 보고, 영계에 다니고, 천국에 다닌다 해도 역시 구시대 아들 주관권의 영적인 자다.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구원자를 맞고 하늘 신부가 되어 육과 영이 휴거되는 차원의 영적인 것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

26. 영적인 새 역사를 중심해서 1000년 동안 역사를 펴 나간다.

<2013년 5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7. 온종일 육적인 시간을 즐기며 보내도, 한 시간 동안 영적인 시간을 보낸 것만 못 하다.

28. 영적인 시간을 보내면, 자기 영이 구원받기만 하면, 자기 영이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영광을 누린다.

29. 영적으로 살면 절대 지옥 쪽으로 안 가고, 천국 쪽 세계로 간다.

30. 영적으로 사는 것도 각각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급 차원에서 영적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을 중심해서 신약급 차원에서 영적으로 사느냐,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전능하신 성자와 이 시대 구원자를 믿고 따르며 성약급 차원에서 영적으로 사느냐에 따라 각각 차원이 다르다.

31. 이 시대 섭리 주관권 안에서 저마다 누가 더 영적으로 사느냐가 문제다.

32. 영적인 삶은 자기 자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구원자'를 중심하고,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해서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33. 한 개인도 육은 육에 속해 있고, 혼과 영은 영에 속해 있다. 육적인 자의 육은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을 막고 육적으로 하려 한다.

34. 육적으로 가면 이성 타락되고,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모든 시간을 육적으로 쓰니 매일 많은 손해를 본다.

35. 영적으로 일해야 표적이 일어나고, 육의 행실도 마음도 혼도 영도 빨리 변화되어 그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36. 영적인 자란,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시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행하는 자다.

37. 똑같이 전도, 관리, 설교, 강의, 찬양 등 성자의 일을 했어도 영적으로 하는 자가 있고 육적으로 하는 자가 있다. 겉으로 보면 모른다. 자기 생각이 삼위일체와 구원자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하는 자가 영적인 자다. 고로 그 공적이 자기 영에게까지 가서 영이 영원히 누리게 된다. 자기중심으로 하는 자는 육적인 자다. 고로 그 공적이 육적으로 끝난다.

38.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신령하게 영적으로 했다 해도 영이 죽은 자다. '영이 죽었다.' 함은 '영이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함이다.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서 해야 영적으로 한 것이다.

39. 육적인 자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자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에서도, 부서에서도 그러하다. 모두 영적으로 행하여라.

40. 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영적으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아 있기에, 육적으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쪼개져 없어진다. 성자와 분체와 함께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41. 말씀은 성자와 분체가 주기에 '100% 성령의 말씀'이고, '100% 영적인 말씀'이고, '100%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육적으로 외치면 말씀이 죽어서 나간다. 고로 듣는 자들도 육적인 자가 되어 버린다. 기도하고 영에 사로잡혀 외치기다! 영적인 자는 듣고 다 안다.

42. 누구든지 육적으로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일이 안 된다. 힘들다. 성자도 구원자도 함께하지 않는다.

43. 영적인 자가 가정에서도, 시대에서도 하늘 역사의 기업을 받는다.

44. 영적인 자는 많이 얻고 많이 누린다.
45. 육적인 자는 사탄이 와도 모른다. 고로 사탄이 제 것으로 삼는다.
46. 영적인 자는 사탄을 직감하니, 기도하여 물리친다.
47.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영적인 자만 안다.
48. 육적인 자는 영적인 자를 핍박하고 악평하고 두렵게 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 전능자 성자는 영적인 존재자다. 고로 모두 심판하여 사망에 던지신다.
49. 전능자가 육적인 자가 있는지 심판하러 나오셨는데, 그 앞에서도 육적으로 행하고 있구나.
50. 영적인 사랑을 해야 육도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
51. 자기를 영적으로 만들어라!
52. 똑같은 마음도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인 자가 된다.
53. 성자와, 성자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몸으로 쓰는 자를 생각하고 심정 일체, 진리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러면 영적이다.
54. 만사의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기에 따라 달려 있듯이, 자기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영적으로 만들기에 따라 영적인 자가 된다.
55. 영적인 자라야 삼위일체도, 구원자도, 천사도 더욱 함께한다.
56. 영적으로 행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57. 영적으로 행해야 시간의 표적이 일어난다.
58. 교회에서도 육적인 자들이 육의 권위를 가지고 행하며, 영적인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한 날에 성자가 채찍질 하신다.
59. 영적인 자만 육도 영도 휴거된다.
60. 영적인 자가 말씀을 잘 깨달으면서 듣는다.
61. 육적인 자들은 모든 것을 자기 생긴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중심으로 육적으로 보고 말한다.
62. 영적이어야 자기 영이 휴거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려 한다.
63. 섭리사 주관권 밖의 영적인 자들은 자녀 차원에서 영적이다. 고로 신부 차원에서 영적인 것과는 땅과 하늘 차이이다.
64. 이 시대에 지금 외쳐야 될 핵심 말씀을 외쳐야 영적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65. 이 시대 말씀이 신령하고 영적인 말씀이다. 고로 이 시대 말씀을 받고 외치면 영적인 자가 된다. 성자가 그와 함께 하신다.

66. 성자는 얼마나 영적인가 그 영적인 차원을 보고 사명을 주신다.

67. 영적인 자가 더 마음 천국을 누린다.

68. 영적인 자가 영계도 잘 다닌다.

69. 영적인 자가 능력도 크고, 생각도 크고, 행함도 크다.

70. 영적인 자가 다스리게 된다.

<2013년 5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불을 차면 공중으로 날아가는 반응을 보이듯이, 성자가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고치고 행하는 만큼 살아난다.

2. 쓰러지는 집을 일부만 새 것으로 고쳤다고 해서 안 쓰러지겠느냐. 다 무너뜨리고 아예 다시 새로 지어야 된다. / 새벽 시간도 마찬가지다. 정한 시간을 몽땅 써야지, 일부 시간만 가지고서는 무너진다.

3. 무엇이든지 일부만 하면 무너진다.

4. 전체가 부지런해야 된다.

5. 일부만 행하면 나머지로 인해서 무너진다.

6. 온전히 행하여라.

7. 목적지를 두고 일부만 가고 말면, 나머지 일부를 못 갔으니 결국 목적지에 못 간다. 고로 일부 간 것까지 헛수고가 된다.

8. 사람들은 성자 앞에 일부만 행한다. 이는 마치 목적지를 두고 일부만 가고 마는 자와 같다.

9. 신앙생활을 할 때 일부만 행하면 안 된다. 왜? 일부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10. 전도도, 관리도, 말씀도 일부만 하면 나머지 못 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11. 병도 일부만 고치면 나머지 못 고친 것으로 인해서 병이 재발하게 된다.

12. 그림도 일부만 그리면 작품이 못 된다.

13. 신약역사는 일부 역사다. 성약 2부 역사까지 해야 100% 역사다.

14. 신부도 일부만 신부가 되지 말아라. 이런 자는 신부가 아니다.

15. 기도 시간에는 몽땅 기도해야 된다. 일부만 하면 기도가 성사되지 않는다.

16. 쓰러지는 집을 일부만 고쳤더니 고치나마나 쓰러졌다. (영계에서 보고 잠언 쓰다.)

17. 무엇이든지 일부만 하지 말아라.

18.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을 폐하여라.
19. 부분적으로만 행하는 자는 자기 영을 완성하지 못하여, 결국 그 영이 안타까운 곳으로 간다.
20. 온전하게 행해야만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을 폐하게 된다.
21. 온전히 행하여라. 완전하게 행하여라.
22. 인공위성도 온전히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만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온전히 만든 것까지 문제가 일어나 발사되지 않는다. / 신앙도 자기가 온전히 만들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 휴거도 안 된다.
23. 하찮은 작은 볼펜도 100% 만들어야 써진다.
24. 시계도 온전히 만든 만큼만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작동한다.
25. 탱크도, 우주선도, 비행기도, 자동차도 100% 만들어야 사용한다.
26. 미인도, 철인도, 초인도, 천인도, 위대한 자도, 천국인도, 성자의 신부도 100% 만들어야 빛을 발한다. 자기를 성자와 함께 만들어라!
27. 결심하고 만들면 만들어진다.
28.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29. 1분 동안 그림을 그렸더니 평생 그 그림으로 내가 증거를 받게 되었고, 내가 빛나게 되었다. 1분이라도 하면 이같이 평생 표가 난다.
30. 인생 실패한 자는 게을러서 실패한 것이다. 안 해서 실패한 것이다.
31. 적은 시간을 가지고서라도 하고자 마음먹고 열심히 하면, 하루 종일 한 만큼 일을 하게 된다.
32. 하루만 성자와 함께 열심히 일해 놓으면, 그것으로 평생 자랑하며 보람 있게 산다.
33. 가만히 있으면 강물 위에 떠내려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것이 사라진다.
34. 기도하다가 성자에게 좋은 할 일과 이벤트 거리를 달라고 하여라.
35. 무기력에 빠지면, 그것도 잠자는 것과 같아서 못 일어난다.
36. 늦었더라도 뛰어서 가면, 일찍 출발하여 걸어간 자를 따라간다.
37. 일어나서 행해야 빛을 발한다!

<2013년 5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38. 한 번 설교를 잘해 주면, 들은 자가 평생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
39.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는 자들은 평생 한 번을 외치고 그로 인해서 점수를 받아 자기 영이 거할 천국의 위치가 좌

우된다 생각하고 연구해서 외쳐라.

40. 별 은혜와 감동과 내용 없이 말씀을 외치는 자들은 1년씩 준비하고 연구한 다음에 외쳐라.

41. 전능자의 귀한 말씀을 뜨거운 은혜와 감동으로 받아 줘도 설교자들이 불이 없으니, 얼음 그릇에다 뜨거운 물을 받아 주는 격이다. 그러니 휴거될 신부들이 휴거되지 못한다.

42. 교역자가 되려고 하지만 말아라. 시켜 보면 은혜가 별로다. 먼저 준비하여 자격을 갖춰라.

43. 중고등부 몇 명에게 준비시켜 설교를 시켜 봤더니, 듣는 자들이 즉시 은혜와 불을 받았다고 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낮다 함이다.

44. 매일 새롭게 하여라. 목회자들이 표상자에 관심 없이 자기 식대로만 한다. 표상자를 보고 따라하라는 성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성자가 답답해하시며 “나도 어쩔 수 없다. 적당한 데로 보내자.” 하신다.

45. 목회자들은 표상 교회인 주님의교회를 따라서 개성대로 하여라.

46. 표상 교회는 기준 교회다. 기준을 쳐다봐야 앞뒤 좌우 줄을 맞추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준을 보고 줄을 안 서느냐. 교만한 자다.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는 교만 병이다. 무엇을 잘하느냐. 주가 보니, 일부만 행하는 자들이다. 초가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기둥 일부만 새 것으로 고치는 자와 같다. 고로 점점 무너진다. 기준자를 보면서 앞뒤 좌우 줄을 맞추어라.

47. 표상 교회도 더욱 완전한 표상이 되기 위해서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하자.

48. 표상 교회같이 교역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뛰어야 한다. 그런데 설교자들이 표상자와 일체 되지 않고 자기 식으로 하니까 안 된다.

49. 설교할 때 말하는 것도, 외치는 것도, 제스처도 표상자를 따라서 해라. 설교할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성자의 말이 다른 말로 전달된다. 또한 습관이 되어서 잔소리 설교를 하니, 교인들은 교역자의 설교에 성령과 은혜와 불이 없다며 계속해서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온다. 인격이 땅에 붙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이나 챙기고, 자기 모순과 흠을 고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목회자라 할 수 없다. 바깥 사회에서 오는 자들이 즉시 알고 그 모순을 지적한다. 하늘 섭리에서 배운 자들이 더 빛이 나아 하지 않겠느냐.

50. 성자와 분체가 주기에 말씀은 100% 성령의 말씀이다. 100% 영적인 말씀이다. 100%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잘 듣고 행하면 육도 휴거되거나와 그 영도 천국 성약급으로 휴거된다. 그러나 전하는 자들이 제대로 못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도 성령을 못 받고, 육적인 자가 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는 것이다.

51. 표상을 중시하지 않으니, 시대에 보낸 표상도 중시하지 않는 것이다. 높은 차원에 있는 시대 표상자에게만 기어오르려 하지 말고, 그 밑의 차원에 있는 표상자에게 맞춰라. 그러면 큰 표상자에게도 맞추게 된다.

52. 부분적으로 자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잘하여라.

53. 시범자, 표상자를 안 보고 하면 일부밖에 못 행한다. 고로 그 교회는 낙제다. 교역자 때문이다.

54. 섭리 전체의 표상자이며 기준자는 분체를 보고 해야 된다.

55. 섭리세계는 기준자를 보고 줄을 맞춰서 한 줄로 서 있는 것과 같다. 고로 줄에서 빗나가서 서 있으면 금방 표가 난다. 기준을 보고 줄을 맞춰라. 설교하는 것도, 강의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기준을 보고 맞추면서 개성대로 하는 것이다.

56. 기준자는 분체의 손을 잡고 있다. 고로 기준자의 손을 잡아야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주는 모든 것들과 통한다.
57. 일체 돼야 느낀다.
58. 사랑도 사랑하는 대상과 몸, 마음, 생각 등 모든 것이 다 통해야 된다.
59. 닿는 대로 느낀다.
60. 마음 닿으면 마음을 느끼고, 몸이 닿으면 몸을 느낀다.
61. 과수원에 가서 나무에 닿으면 나무를 느끼고, 과일에 닿으면 과일을 느끼듯이, 성자께도 닿는 대로 느낀다.
62. 자기 수준대로 닿는다.
63. 저마다 천국에 닿고, 낙원에 닿고, 선영계에 닿고, 음부에 닿고, 무저갱에 닿고, 지옥에 닿는다. 깨닫고 행하여라.
64. 부분적으로만 행하는 자는 목욕탕에서 얼굴만 씻고 나오는 자다.
65. 부분적으로만 알고 말하는 자는 자기 인격과 수준이 부분적으로만 만들어진 자다. 눈과 마음이 사시(斜視)와 같아서 그렇다.
66. 신부도 부분적으로만 보고 평가하면, 눈이 사시와 같다. 여덟 군데를 봐야 된다. 첫째, 마음과 인격을 본다. 둘째, 얼마나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지 본다. 여기까지가 70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 얼굴, 키 등을 본다. 이 부분이 30점이다. 이렇게 해야 100점이 된다. 이같이 보니, 모두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지 않느냐.
67. 성자는 키 작은 자는 굴리는 데 쓰고, 키 큰 자는 사다리로 쓰신다.
68. 도토리는 키가 작다고 지혜를 받아서 늘 모자를 쓰고 다닌다.

<2013년 5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게으른 자에게는 사명을 주지 말아라. 자기 몸도 못 다스린다.
2. 자기 할 일을 제 시간에 못 하는 만큼 게으른 자다.
3. 게으른 자는 성자와 분체에게 다 찍혀서 기록되어 있다.
4. 영계에서 육계의 실상을 보여 준다.
5. 육계에서 말로 한 것이나 행한 것의 실상을 실제로 영계로 보여 준다.
6. 가령 육계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두고 미루거나 하지 않고 게으른 행위를 했으면, 영계에서는 자기가 차를 타고 가야 할 것인데 걸어가는 것으로 보여 준다.
7. 게으른 종류도 가지가지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게으른 것이지만, 하기는 하는데 제 시간에 안 하고 늦게 하는 것도 게으른 것이다.
8. 자기 할 일을 제 시간에 맞춰서 못 하는 자도 게으른 자다.

9. 사명을 주며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하기는 하는데 늦게 한다. 이런 자는 마치 경기에 내보냈는데 남들이 다 뛰고 난 후에 뛰고 온 자와 같다. 게으른 자다.
10. 게으른 동물은 사냥을 못 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11. 섭리사에서 게으른 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꺾어 보고 소문이 나서 다 안다.
12. 섭리사에는 ‘치타’과가 있다. 빨리 행하는 자들이다. 또 ‘거북이’과가 있다. 느린 자들이다. 또 ‘말’과가 있다. 말만 하고 안 하는 자들이다.
13. 섭리사에서 말을 냉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독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자께서 이런 자들을 영적으로 보여 주셨는데, 독을 쏘는 ‘지네’로 보여 주셨다.
14. 욕심이 많은 자는 ‘족제비’로 보여 주신다.
15. 내게 말을 거슬리게 하고, 시대 말씀을 흠 잡고, 나의 사명을 두고 비웃으며 빈정대며 말하고, 각종 더러운 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 성자께서 꿈에 계시하며 영계에서 그 사람을 보여 주셨다. 한 여자가 벗고 서 있는데, 그 하체의 핵심 지체에서 국수 가락 같은 것이 계속 짹짹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국수같이 긴 벌레였다. 정말 정 떨어지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몸서리가 쳐지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하체의 핵심 지체에서 왜 그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더러운 것인지 몰랐다. 육계에서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16. 새벽 꿈에 내 혼이 보니, 한 장소에 1m나 되는 지네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때 내 바로 옆에 밥주걱이 있어서, 밥주걱으로 그 지네의 머리를 짓이기고 토막 내어 끓여서 죽였다. ‘지네’는 나를 여러 가지 더러운 말로 씹어대는 독한 사람을 보여 주신 것이고, ‘밥주걱’은 내 옆에서 먹을 것을 잘 주는 사람을 보여 주신 것이다. ‘밥주걱’도 사람에 비유하여 보여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네 같은 사람을 막아 주신 것이다.
17. 꿈에 자기 혼이 먹은 음식이 있다. 그 음식의 종류대로 자기가 생시에 심령의 말씀을 먹은 것이다.
18. 꿈에 자기 혼이 진수성찬을 먹어야 말씀도 진수성찬이다.
19. 꿈에 자기 혼이 행하고 겪은 것은 낮에 육계에서 자기가 마음먹은 것과 자기 육신이 행하고 겪은 것을 상징하여 비유로 그 실상을 보여 준 것이다.
20. ‘지혜’로 꿈의 계시를 푼다.
21. 낮에 내가 성자와 대화하며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시간을 보냈더니, 꿈에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것이 나왔다. 그 사람은 육계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고, 아는 사람일 때도 있다. 성자를 사랑한 것을 이와 같이 이렇하다고 보여 준 것이다.
22. 꿈에 혼으로 보면, 자기 육이 육계에서 행한 것의 실상을 성자 주님이 보시는 입장으로 보게 된다.
23.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자기가 행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본다.
24. 어떤 교회의 목회자에게 그 교회의 상황을 말하면서 목회자가 잘못된 점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는 않고, 누가 보고했는지 파악하면서 “선생님의 혼이 그렇게는 못 보신다. 분명히 누가 이상하게 보고한 것이다. 나는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 했다. 그 목사의 영을 영계에서 보니, 거리에서 다 벗고 손으로 눈만 가리고 다니고 있었다. 그 목사는 선생의 사명을 제대로 모르는 자다.

25. 영계에서 그 영을 보면, 명지털도 코끼리 털만 하게 자세히 크게 보인다.
26. 거짓말하는 자와 속이는 자는 휴거 명단에서 제외돼 있고, 천국 문도 구경도 못 해 보고 성 밖에 있다.
27. 누구든지 꿈으로 자기 혼이 어느 차원에 있는지 보아라. 자기 혼도 못 보는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육체덩이 세상에만 매여 사는 자다.
28. 분체는 혼계에 안 가는 날이 없다.
29. 매일 혼계에 가서 혼들을 내 옆에 불러 놓고 이야기도 하지만, 1000리, 10000리 지구촌 끝에 처한 자의 혼도 다 불러서 육신을 불러서 물어보듯 다 물어본다. 혼도 입장이 곤란하니 속이기도 한다. 혼은 육과 한 틀이다. 육이 속이고 가리고 거짓말하면, 혼도 육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다 파헤치면 “미안해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한다.
30. 귀뚜라미도 나를 속이지 않았다.
31. 귀뚜라미가 마지막 초겨울에 떠날 때 “이제 못 볼 것 같아요.” 하더니, 해가 바뀌도록 안 나타났다. 방과 화장실을 100% 다 치우며 찾아봤는데 흔적도 없었다. 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었다. 성자 주님께 물으니 “내가 행했으니 흔적이 있겠느냐. 나도 그와 같다고 보여 준 것이다. 나는 신이니 얼마나 흔적 없이 오고 가겠느냐.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혼으로 알아라.” 하셨다. 그리고 “나는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셨다. 이는 ‘땅에서 준비해 놓고, 재림을 위해 하늘로 떠나간다.’ 함이다.
32. 주의 영도 목회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흔적도 없이 오고 간다.
33. 보이는 눈앞의 지도자만 쳐다보고 중심하는 자를 휴거시켜 주겠느냐.
34. 휴거는 비밀이라서 누가 휴거됐는지, 안 됐는지 비밀이다. 끝까지 말을 안 할 것이다.
- <2013년 5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35. 육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영이 하늘로 휴거된다. 영을 못 보니, 자기가 휴거됐는지 모른다.
36. 혼도 하늘로 휴거되지 않는다. 육이 살아 있는 동안 육과 영의 매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육이 죽으면, 혼은 그제야 영이 간 곳으로 떠나간다.
37. 자기 영이 휴거되었어도 자기 육은 평소에 하던 생활을 그대로 한다. 이는 마치 집에서 자기 딸을 시집보냈어도 평소에 하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것과 같다.
38. 어떤 사람은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반신반의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분명히 모르고 죽는다.
39. 성자 주님을 확실하게 절대 사랑해야만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조금씩 느껴 알게 된다.
40. 자기 영이 휴거됐어도 지금 휴거 중이라고만 말하지, 누가 휴거됐는지, 또 얼마나 휴거됐는지 성자는 말하지 않는다.
41. 다만 꿈에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며 지혜자만 깨닫게 하신다.
42. 구시대인들은 휴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 구시대 급으로 휴거돼도 모르고, 안 돼도 모르고, 마냥 예수님의 육신이 구

름 타고 눈에 보이게 올 것만 기다린다. 이는 마치 자기 엄마가 자기가 아기였을 때 죽었는데, 언젠가는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다.

43. 윗집 사람들은 알고, 아랫집 사람들은 모른다.

44. 구시대에는 죽은 자가 오기를 기다린다.

45. 영은 와도 재림의 영으로는 못 온다. (예수님은 성자의 초림 때 분체다. 곧 예수님이 영으로는 와도 재림의 영으로는 못 온다는 말이다. 재림 때는 성자가 오신다. 성자가 오셔서 재림에 해당되는 자를 그의 분체로 삼고 재림 역사를 펴신다.)

46. 재림은 오직 하늘의 성자만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신다.

47. 성자는 영으로 오셔서 합당한 자를 자신의 분체로 삼으시고, 그 육을 통해 자신을 반영하신다. 그리고 성자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다. 이를 절대 믿고 따라오면 나타내시고, 의심하면 “올 자가 오고 있다. 기다려라.” 하신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나타내신다.

48. 황태자가 변장하고 한 여자와 연애하면서 그 여자가 자기를 믿고 따르면, 따르는 만큼 자기를 조금씩 나타낸다. 안 믿으면 안 나타낸다. 여자가 안 믿는 대로 그에 맞는 말을 하면서 등을 돌린다.

49. 주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면 말을 돌려서 비유로 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네가 기다리는 자가 나다.” 하며 나타낸다.

50. 혼계에서 선생이 청중집회를 하려고 변장을 하고 군중 속에 들어갔다. 선생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 나는 한 사람에게 “왜 선생을 찾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저쪽 운동장 끝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선생을 찾느냐는 물음에 “선생님을 따르려 합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테니 나만 따라오세요.” 했다. 그는 따라오다가 말았다. 또 어떤 사람은 왜 선생을 찾느냐는 물음에 “선생님께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했다. 그러니 “이 선물을 선생님께 전해 주세요?” 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전해 주세요. 내가 선생님이 계신 곳까지 데려다 줄게요.” 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따라오다가 말았다. 또 한 사람이 선생을 찾았다. 왜 찾느냐고 물으니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따라오세요. 진정 회개하고 하고픈 말이 있으면 나만 따라와야 합니다.” 했다. 그랬더니 그는 청중이 다 집에 돌아가기까지 나를 따라다녔다. 그는 선생을 꼭 만나서 회개하고 하고픈 말이 있는 자였다. 진정 만나고자 하는 자만이 청중이 가더라도 끝까지 남았다. 결국 선생에게 인도하는 자는 선생 자신이었다.

51.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원자를 진정 만나고자 하는 자만이 끝까지 남는다. 각자 행위대로 대해 주면서, 믿고 따르는 만큼 나타낸다.

52. 주는 각자 행위대로 대해 준다.

53. 어려운 때가 오히려 나에게도 너에게도 더 좋은 때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54. 불가능한 일은 뒤에서 일어난다.

55. 비밀은 뒤에서 밝혀진다. 뒤로 가 보아라.

56. 앞에서 지키니 도둑놈이 뒤에서 노략질한다.

57. 앞만 쳐다보면 목 디스크에 걸리고 목만 뺏뺏하다.

<2013년 5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보물인데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보물인지 모른다.
2. 자기 지능의 차원을 높여야 보물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여 보물을 얻게 된다.
3. 기도가 보물이다.
4. 말씀이 보물이다.
5. 성자와의 사랑이 보물이다.
6. 사람이 보물이다.
7. 시간이 보물이다.
8. 가치의 눈을 뜬 자만 보인다.
9. 보물에 눈을 뜨지 못한 자는 눈으로 봐도 안 보이고 모른다.
10. 가치의 눈을 뜨지 못한 자는 가치 있는 것을 어디에 쓸지, 쓸 곳을 못 깨닫는다.
11. 쓸 곳을 깨달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다.
12. 자기 몸을 어디에 쓸지 못 깨달으면, 그냥 가만히 놔둔다.
13. 자기 몸을 쓸 곳은 수백 곳이나 있다. 땅을 향해 쓸 곳이 없으면 하나님과 성자 위해 쓸 곳을 찾아봐라.
14. 보물도 쓸 곳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15. 가령 자기에게 큰 돌이 있는데 쓸 곳이 없으면, 그 돌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16. 자기 몸도 쓸 곳이 없으면, 무가치한 몸이다.
17. 자기 몸을 쓸 곳을 찾고 구하여라. 쓸 곳에 써 달라고 간구하여라.
18. 쓰더라도 얼마나 차원 높이 쓸 곳을 찾느냐가 문제다.
19. 쓰기는 쓰는데 차원 낮게 쓴다.
20. 자기 몸을 이성으로 쓰고, 향락으로 쓰고, 세상으로 쓰고, 노는 데 쓰고, 잠자는 데 쓰고, 할 일 없이 쓴다.
21. 자기 몸을 귀히 쓰려면, 전능하신 성자에게 맡겨라.
22.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몸으로 써라. 그러면 육신의 삶으로 인해서 그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가치 있게 살게 된다.
23. 너희 몸을 전능자 생각에 합당하게 써라. 깨달아라!

24. 사람의 몸은 시간과 같다. 시간은 흘러가면 끝이다. 사람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그러하다.
25. 물은 흘러야 아름답고 생명력 있다. 사람의 몸도 움직여야 아름답고 생명력 있다.
26. 사랑은 움직일 때 느낀다. 몸도 움직일 때 세상의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을 느낀다.
27. 생각은 진화다.
28.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움직이고 생각하는 대로 육과 혼과 영이 얻는다.
29. 만물 중에는 보화가 정말 많다. 아는 자가 캐 간다.
30. 지구는 조화의 보화 덩어리다.
31. 사람의 몸은 수백 가지 보화 덩어리다.
32. 보화를 가공하듯이, 자기를 만들어라. 수백 가지로 만들어라.
33. 좁은 데서는 더 집중된다.
34. 보화를 알면, 역경 중에서도 캐낸다.
35.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보화가 있을지 모르니 찾아라!
36. 가시덤불, 계곡, 암벽, 험한 곳... 어디에 보화가 있을지 모른다. 환난, 핍박, 억울함이 있을 때도 보화를 많이 찾고 얻었다.
37. 인생이 쫓길 때는 쫓기기만 하지 말고, 그때 집중하여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화를 찾아라!
38. 악인에게 쫓길 때 앞모습은 군인 돌, 뒷모습은 웃는 돌인 수석을 찾았다. 성자가 주셨다. 뜻은 '기치를 벌인 군인 같이 살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라'는 것이다. 선생의 자화상의 상징으로 주셨다. 자화상이 자신에게는 최고 보화의 작품이다.
39. 깨닫는 만큼 가치를 안다.
40. 쓰는 만큼 가치가 있고, 쓰는 만큼 작품이다.
41. 시간은 금과 같다. 그러나 쓰는 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42. 그 시간을 돈 버는 데 쓰는 것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여 자기 영을 빛나게 하고, 전능자 성자와 통해라. 이는 영원한 가치다. 그것을 어떻게 돈의 가치와 비교하겠느냐.
43. 그 시간에 생명을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 보라. 자기 공적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다.
44. 자기 공적으로 천국에 자기 영이 영원히 거할 황금 보석 집이 여러 가지로 지어져 간다. 그 공적 중의 하나가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다. 생명을 전도하여 살리는 대가로 생명같이 빛나는 보석으로 천국에 자기 집을 짓게 된다.
45. 생명 구원의 공적이 없는 자는 차원이 낮은 천국에 간다.

<2013년 5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46. 월명동은 하나님의 보화의 성전 궁이다.

47. 눈으로 봐도, 모르는 자는 모른다.

48. 모르면 보화를 덮고, 거기에 꽃을 심는다.

49.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는 자는 더 귀한 하늘의 보화다.

50. 똑같은 만물이라도 하나님이 써야 더 귀한 보화다.

51.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라도 눈을 뜬 자는 그것을 수역의 가치로 귀하게 쓴다.

52. 사람도 모르면 짓밟힌다. 아는 자는 천하보다 더 귀히 쓴다. 전능자에게 가라. 전능자가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오직 전능자만이 너를 근본으로 알고 귀히 쓰신다.

53. 세상은 보화도 아닌 자들을 그리 귀히 보고 숭배한다.

54. 결국 사망에 갈 자들을 숭배하다가 그와 같이 사망의 깊은 곳으로 간다.

55. 미련한 자는 분별하지 못하고 짐승같이 산다.

56.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다.

57. 세상 인생들의 차원은 천층만층으로 각자 차원에 따라서 살아간다. 한집에서 같이 살아도, 한 섭리사에서 같이 살아도 각자 차원에 따라서 각각 살아간다.

58.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차원대로 듣고 행한다. 그러니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59. 더 노력하고 더 행하기에 따라서 그 날부터 차원은 높아진다.

60.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보통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콧방귀도 안 뀌다. 자기 차원 때문이다.

61. 차원을 높여야 휴거된다.

62. 육계에서 보면 안 보인다. 영계에서 보고 육의 것을 깨닫고 찾고 행하여라.

63. 어떤 사람은 보화를 버린다.

64. 대뇌, 소뇌 모두 보화다.

65. 부지런함이 보화다.

66. 열심으로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보화다.

67. 말이 보화다.

68. 자기 할 일을 때 맞춰 깨닫는 것이 보화다.

69. 보아라. 그러면 보화를 찾는다.

70. 눈으로 못 보면 깊이 생각하며 깨달으면서 찾아라. 그러면 보화를 찾는다.

71. 혼과 영으로 천국으로 못 가도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과 깨달음으로 천국 보화를 찾는다.

72. 자기에게만 보화로 쓰이고, 타인에게는 보화가 아닌 것도 있다.

73. 자기만 만족하는 보화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보화도 있다.

74. 환경의 보화다.

75. 희귀종들도 개성대로 보화다.

76. 시대 주인이 써야 더욱 귀한 보화 인생이 되고, 시대 주인이 안 쓰면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

77. 집안의 물건도 주인이 안 쓰니 썩게 된다. 산도, 들도, 땅도, 보물도 주인이 안 쓰니 폐허가 되고 녹이 쓴다.

78. 쓰여져야 빛난다.

79. 쓰여지되 제대로 쓰여져야 빛난다.

80. 금 항아리도 쓰레기통으로 쓰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그러하다.

81. 주인이 안 먹으니 들개가 먹고, 들개의 뼈와 살이 되어 결국 들개의 몸이 되어 짐승으로 살아간다.

82. 주인이 먹은 음식은 주인의 몸이 되어서 주인과 함께 빛나는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2013년 5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83. ‘물건’은 사람이 가치를 알아줘야 되지만, ‘사람’은 자기가 자기 가치를 알아줘야 된다.

84.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는 정말 귀하고 빛났는데 깨지니 안타깝고, 모양이 덜해도 깨지지 않은 항아리가 더 귀하게 됐다.

85. 인생도 가치 있게 보는 것이 깨지면 무가치하게 된다. 다시 만들어야 된다.

86. 수석도 그 돌을 가치 있게 보는 것이 깨지면 무가치하게 된다. 그나마 쓰려면 갈아서 다른 것을 만들든지, 본드로 붙여서 아쉽게 쓰든지 해야 된다. 인생도 그러하다.

87.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고 주가 쓰면, 천하에 둘도 없이 귀한 인생이 된다. 주인이 안 쓰고 타인이 쓰니 보통이다.

88. 월명동은 주인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성자의 몸이 쓰니, 얼마나 귀한 보물덩이로 쓰느냐. 주인이 쓰지 않았을 때는 잡초 동산이었고, 농사짓는 땅이었고, 삭막한 곳이었고, 뱀과 산짐승들이 사용하는 곳이었고, 가시덤불이었고, 수렁이었다. / 인생들도 그러하다. 주인의 품을 떠난 자들을 보아라. 비단옷이 걸레 되고, 왕관이 영의 시체 관이 되어

사망에서 귀히 쓰여지고 있다.

89. 생각으로 매일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보고 귀하게 살아가라.

90. 가치 없이 살면, 성자와 주와 같이 못 산다.

91. 뛰는 자만 못 한 것을 할 수 있다.

92. 못 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리저리 해 보아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칼날같이 세우고 살펴보면서 찌르고 뚫고 나가라. 행할 길이 있다.

93. 오늘은 늦게 일어났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칼날같이 세우고 행하니, 육계에서 영계로 들어가서 내 육이 혼과 일체 되어 80개 이상의 잠언을 썼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칼날 같지 않고 무디면 못 한다.

94. 나쁘게 생각 말고 좋게 생각해라. 그러면 썩은 것이라도 쓸 곳이 생긴다. 그것을 과일나무에 거름으로 주어 좋은 열매로 변화시켜 결국 열매를 따게 된다.

95. 정한 날까지 참고 거기서 그 날 할 일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달같이 병아리가 되어 나온다.

96. 좋게 변화시키면 돌도, 흙도, 쇳덩이도 사람 형상이 되고, 육으로 인해 그 영이 전능하신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게 거기까지 변화된다.

97. 영의 세계의 일은 관심을 안 가지면 지구 세상보다 수억만 배 크게 존재하고 있어도, 지구 세상의 역사보다 수억만 배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98. 지구 세상의 것도 관심을 가져야 발견하고 알게 된다. 영계의 것도 그러하다.

99. 겉만 보면 작지만, 한 번 캐 보아라. 큰 바윗덩이다. 인생도 그러하다. 확인해 보아라.

100. 처음에는 작지만 할수록 커진다.

101. 처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키울 것을 키워라.

102. 키워야 아름답게 변화된다.

103. 육신은 다 컸어도 영은 아주 어리다. 영이 클 때까지 키워라.

104. 섭리사에 40대가 다 된 목사가 있다. 그 목사는 “내 육을 따라서 내 영도 다 컸겠지?”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서 보니 자기 영이 중학생 정도였다고 했다.

105. 영이 크려면 주와 일체 되어 시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자와 심정 일체, 사랑 일체 돼야 한다.

106. 어떤 사람은 육은 10대인데, 그 영은 20대 청년같이 컸다. 본체를 제대로 알고, 시대 말씀을 제대로 알고 행하고,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107. 영은 자기 마음, 정신, 생각, 육의 행동에 따라 변화되면서 크다.

108. 어떤 사람은 육은 40세인데, 그 영은 초등학교 정도다. 정신 연령과 영 연령이 낮다.

109. 영을 키우려면 기도하고, 시대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라. 본체를 제대로 알고 행하여라.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으로 성장하여라.

110. 자꾸 배우면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큰 자가 된다. 혼도 영도 그러하다.

111. 좋은 지혜를 가지고 좋게 써라. (설명 : 선생이 순간 다른 생각을 하니까, 성자께서 “좋은 지혜를 좋게 써라.” 하셨다.)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크게 저 주고 크게 이겼다.

2. 선으로 크게 저 줘야 선으로 크게 이긴다.

3.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생각을 목적인 곳에 집중하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한 군데에 힘을 주듯이 생각에 힘을 줘야 된다. 그래야 생각이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는다.

4. ‘마음’은 정말 더럽다. ‘회개’로 수시로 씻어야 된다.

5. 답을 찾고 싶으나.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는 것이 가장 빠르다.

6.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라.

7. 생각해야 답을 준다.

8. 물음에 대한 답이다. 물어야 답을 준다.

9. 문기를 잘해라.

10. 말해야 대화가 된다.

11.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생각’으로 많은 것을 얻는다.

12. 생각을 놀리면 생각이 녹슬고 굳어 버린다.

13. 사람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 있고, ‘생각’으로 얻는 것이 있다.

14. 생각해서 ‘시’도 얻고, ‘글’도 얻고, ‘좋은 구상’도 얻고, ‘좋은 계획’도 얻고, ‘좋은 방법’도 얻는다.

15. 생각으로 영의 세계의 많은 것들을 얻어라.

16. ‘몸’을 방에 가만히 두고도 ‘생각’으로 온 천지를 다니면서 얻게 된다. 생각의 본체는 ‘혼체’다.

17. 혼체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차원대로 상천하지를 다닌다.

18.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19.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20. 자기 생각을 성자의 생각과 일체 시켜, 신의 생각을 통해서 차원 높은 것을 얻어 내는 것이다.
21. 상대와 같은 시간에 똑같이 생각하면 통하게 되는데, 대신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
22.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면 통하게 된다.
23. 생각은 자기 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있고, 외부에서 말하거나 생각을 보내어 느끼고 깨닫기도 한다.
24. 몸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가지고서 얻는 것이 있다.
25. 마음·정신·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 혼체와 일체 되어 생각하면, 혼체가 영의 세계까지 가서 영계의 것을 보게 된다. 마치 육체가 가서 본 것같이 본다.
26. 더 좋은 것은 깊고 높은 차원에 있다.
27. 사람끼리 서로 사전에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그 자리에 가면 만나듯이, 육끼리 서로 말로 의논하고 생각을 주고받자 하고 그 시간에 약속한 것을 대화하면 통하게 된다.
28. 상대와 미리 약속하지 않고서도 육이 찾아가면 만나듯이, 자기 혼체가 상대에게 가면 생시에나 꿈에 만나기도 한다.
29. 생각을 놀리면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30. 생각을 놀리면, 마치 중장비를 사 놓고 놀리는 것같이 아깝다.
31. 생각으로 돈을 벌고, 생각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생각으로 사랑하고, 생각으로 큰일을 하고, 생각으로 금 같은 보물도 캐내고, 생각으로 육신이 고생하지 않게 하고, 생각으로 천국도 간다.
32. 육신은 때를 따라 쉬게 하고 놀게 해도, 생각은 놀리지 말아라. 생각은 육보다 100배 이상 힘과 능력이 있다.
33.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할 때까지 육신은 푹 쉬게 하고, 생각이 좋은 생각을 했으면 그동안 육신은 쉬었으니 이제 육신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34. 생각한 것을 영의 것은 혼을 시키고, 육의 것은 육을 시켜서 행해라.
35. 생각은 해도 생각이 무엇을 가지고 오지는 못한다. 생각이 땅을 파지 못한다. 생각이 땅의 돈을 주워 오지 못한다. 생각은 생각해 주기만 한다. 몸이 행해 줘야 된다.
36. 생각은 ‘구상’, 몸은 ‘실천’이다.
37. 마음은 성자와 ‘구상’, 육은 ‘실천’이다.
38. 성자가 생각을 놀리지 말라고 하시어, 생각을 놀리지 않고 생각하여 지금 생각한 것을 육을 시켜 쓰고 있다.
39. 항상 창조주를 생각하고, 사랑의 존재자이신 성자와 그 분체를 생각하여라.
40. 창조자 절대 신을 생각지 않음으로 받는 화가 크다.

41.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육과 혼과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42. 자기가 생각하던 것을 행하게 된다. 고로 생각이 중요하다.
43. 신령한 생각으로 행하면 하루면 한다. 이 일은 육으로는 평생 해도 못 한다. 고로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44. 육은 조금 해도 피곤하지만, 생각은 정신세계라서 안 피곤하다.
45. 생각을 깊이 하니 넓은 바다가 보였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눈을 돌려서 내 생각이 내 혼체와 함께 사방을 다니다가 보니, 사람 같은 인어가 살고 있었다. 생각으로는 못 잡으니, 육에게 이야기하여 생각이 하라는 대로 하게 했다. 결국 그 인어를 잡았다.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닷물을 넣고 기르니, 인어가 좋아서 자기 재능을 다 부리며 기뻐했다.
46. 생각을 놀리지 않고 생각에게 성자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생각이 성자를 만나서 하나의 잠언을 받아 와서 육에게 실천하라고 했다.
47. 생각을 사역자로 보내어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의 좋은 정보를 알아 오라고 했다.
48. 생각은 육신의 최첨단의 정보 수집자다.
49. 생각의 레이더망을 작동시키고 항상 마음을 검토하여라. 그리고 생각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보아라.
50. 전능하신 성자도 우리 생각에 정보를 보내신다.
51. 생각은 항상 사탄을 감지한다. 생각이 사탄을 감지하고 육에게 전해 주면, 즉시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이 함께 사탄을 총공격 하여라.
52. 생각이 현지에 가서 중계하니, 마음은 육과 같이 늘 근신하며 긴장하고 그 생각을 받아야 된다.
53. 생각을 놀리면 무(無)의 인생이 된다.
54. 늘 생각을 써야 초인 생각이 된다.

<2013년 5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55. (주 편) 내가 보낸 자를 나 성자처럼 대하여라.
56. (주 편) 내가 보낸 자를 오히려 멀리하게 하니, 나 성자는 다른 자를 보내어 내가 보낸 자와 일체 되는 사역을 하게 했다.
57.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는 임금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자다. 고로 급히 맞이하고 환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대하고 행해야 된다.
58.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의 ‘영’이다. 말씀을 듣고 행할 자들은 그 말씀의 ‘육’이다. 행하면 육이 영의 위치에 가 진다.
59. 새벽에 말씀을 받을 때 혼과 영으로 성자에게 받는다. 그런데 육신이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며 받지 않고 제 생각을 넣어서 받으면, 성자는 말씀을 주지 않으신다. 다시 조건을 세워야 주신다. 육성이 있으면 말씀을 안 주신다. /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주는 자는 ‘영’과 같다면, 그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들은 ‘육’과 같다.

60. 자기도 지난날 당해 봐서 심적 고통을 겪었으니, 이를 깨닫고 누구보다도 더 잘해 줄 수 있다.
61. 선생도 지난날 억울함을 당해 봤기에 섭리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더 공의롭게 해 주는 것이다.
62. 선생이 해외에 있을 때 누가 오면 내 일을 잘 돕겠다 생각하고 그를 두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다. 마치 차를 기다렸는데 자전거가 오듯 하여, 이것이라도 타고 가면 걷는 것보다 낫다고 하며 감사하면서 행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찾길은 없고 자전거 길만 있었다. ‘성자는 이미 아시고 자전거 같은 제자를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그 후에 알고 보니 자전거가 조립식이었다. 고로 자전거가 되었다가 차가 되었다가 했다. 그때 내가 욕적으로 생각하고 그 제자를 그냥 보냈으면 계속 후회하고 회개만 하면서 긴긴 세월을 보낼 뻔했다. 주께서 어련히 알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셨겠느냐.
63. 사람을 잘 대접하니,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이끌어 냄을 받았다. (룻)
64. 그 시대, 그 환경,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
65. 항상 자기가 기도하고 원했기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다. 늘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받아라.
66. 성자와 주의 지체는 섭리사 모든 자들이다. 고로 누구를 쓸지, 어느 지체를 쓸지, 다른 지체는 모른다. 주가 쓰는 지체는 먼저 주가 쓰시는지 확인하고 행하기다.
67. 주가 쓸 때는 쓸 사연이 있어서 쓴다.
68. 월명동 나무도 돌도 그 센터에 세우고 가꿀 사연이 있어서 썼다. 그것을 외면하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주’와 ‘주의 뜻’을 모르는 소경이 된다.
69. 성자도 분체도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비유를 모르면 그 센터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모른다.
70. <구름> 비유를 모르니 구름을 통해 나타내려 하는 ‘주’를 모르게 되어 주를 못 맞는다.
71. 창세기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사람’을 비유했는데 비유를 못 깨달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려던 창조 목적, 사랑의 목적도 못 깨달았다. 고로 인간이 계속 타락해도 모르고 계속해서 타락하며 사는 것이다.
72. 비유는 문제요, 그 실상은 답이다.
73. 아는 자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알게 된다. 그런데 스스로 생각하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가 가도 모르고, 비유한 그 자체 나무와 과일만 생각하고 산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뜻을 못 펴시는 것이다.
74. 자기 뜻을 전해 주기 싫으면 비유로 하고, 인봉할 때도 비유로 한다.
75. 비유를 곧 풀 것 같지만, 준 자가 답을 주지 않으면 못 푼다.
76. 가령 꿈에 병아리를 잡았다 하자. 병아리는 사람인데 누구인지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 중에서 찾아야 비유를 풀고, 꿈을 풀게 된다. 주인만 안다. 고로 비유로 하면 주인만 알고 행한다.
77. 주는 거스르는 자, 악평자, 불신자, 수군대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고 숨는다.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조금씩 나타난다.

78. 주는 합당치 않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한 시대가 가고 인생이 늙어 꼬부라져도 불쌍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
79. 좋다고 간 빼 주지 말고, 나쁘다고 간 빼 주지 말아라.
80. 순간 분위기로 행하다가 큰일을 못 하게 된다.
81. 하나님과 성자는 자기 식,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은 질그릇같이 다 깨뜨리고 다시 행하게 하신다.
82. 하나님과 성자는 말씀을 제대로 풀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질그릇같이 다 깨부수고, 말씀을 온전히 풀고 행한 자들만 데리고 뜻을 펴 나가신다.
83. 성경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비유 시험 문제'다. 열심히 하여 온전히 푼 자가 주인이 되어 시대 역사를 펴 나간다.
84. 복권에 당첨되면 자기만 안다. 자기만 알고 은행에 가서 당첨 번호를 넣고 돈을 찾아간다.
85. 복권 당첨자가 말하지 않고 하듯이, 하늘 사명자에 당첨되면 성자도 말을 못 하게 하고 은밀히 역사를 펴 나가신다.
86.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만 알고 행해야 자기 것이 된다.
87. '성자 재림의 보화'를 가장 먼저 발견한 자가 시대의 주인이 되어 조건을 갖추고 성자의 신부가 된다.
88. 성자의 분체로 나타난 자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 갖추고 행하는 자가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89. 큰 것은 말하지 않고 다 한 후에 사람들이 스스로 알고 따를 때, 그제야 주인공도 응답한다.
90. 아는 것을 말해도 차원이 낮으면 못 알아듣고 행하지도 못한다.
91. 알고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펴 나간다.
92. 합당치 않은 자에게 이야기할 것 없다. 어차피 알아도 막고 비판만 하고 안 따라온다. 혹시 따라와도 큰일을 못 한다.
93. 돼지에게 혼인 잔치 이야기 할 것 없다. 돼지가 와서 잔칫상을 뒤엎어 주인이 몽둥이 들게 한다.
94. 사슴, 치타, 호랑이가 돼지 앞에서 생색내도 돼지 머리라서 그 차원까지밖에 모른다.
95. 돼지는 안 보여도 소리를 듣고 알고, 냄새를 맡고 안다.
96. 큰 돼지는 킹 돼지라고 한다. 돼지 대장이다. 그 돼지가 호랑이를 자기 영역에 가두고 고생시켰다. 이에 호랑이가 그 산에 있는 돼지들에게 각종 고통이 일어나게 하고 슬픈 일을 당하게 했다. 돼지가 뛰어다니다가 다시는 못 올라오는 절벽 밑으로 굴렀다. 돼지는 그것이 호랑이를 괴롭힌 짓값이라는 것을 안다. 돼지는 거기서 각종 고통을 당하게 된다.
97. 하나님이 돼지를 싫어하시는 고로 돼지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98. 원본대로 받아쓰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다.

99. 성자와 주가 보낸 자를 돌리며 행하면, 성자도 주도 그 돌린 자를 돌리며 행한다.
100. 주는 사랑하면서 주가 보낸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낸 자를 통해서 주는 주의 축복을 못 받는다.
101. 유대 종교인들이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를 통해서 줄 축복을 못 받았다.
102. 하나님도 성자도 주도 때에 따라서 직접 하지 않고, 합당한 자를 시켜서 행한다.
103.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행했는데, 이를 막고 거역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104. 보낸 자 맞기다!
105. 아무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생각지 않은 자를 보낼 때가 있다. 그를 맞을지, 안 맞을지 결정은 자기 평소 신앙대로다. 깨어 있으면 맞고, 잠자고 있으면 못 맞는다. 평소 자기 행위대로 맞거나 못 맞는다.

<2013년 5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적은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좌우된다.
2. 적은 시간이라고 포기하면 못 하고, 적은 시간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게 된다.
3. 큰일도 틈 시간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4. 적은 틈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못 하느냐가 결정된다.
5. 적은 시간이지만 하면 된다.
6.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 했다가 못 일어나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 포기하고 안 한다. 늦었어도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기도하여라. 만사의 모든 일도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포기하고 안 한다.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하면 된다.
7.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사람의 기대 위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은 다르다.
8.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면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을 보고, 성자 주님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신다.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사람의 기대 속에 갇혀 있지 않으신다.
9. 항상 성자의 기대대로 해야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10. 자기 기대대로 하면 성자의 뜻이 아니니 안 될 때가 많다. 성자의 기대가 있으니 성자께 기도하고 다시 하여라.
11. 사람들은 자기 기대대로 안 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 꿈대로 안 되면 포기한다. 그 일에 대해 성자의 기대와 계획과 생각과 꿈이 있다. 그것을 알고 하도록 기도하여 성자의 기대와 뜻을 찾아라.
12. 성자는 우리가 늦어도 해 주려고 하신다. 그러니 늦었다고 포기하고 안 하지 말고, 성자의 뜻대로 달라고 하여라.
13. 성자는 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주려 하신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비우고 성자를 쳐다보고 간구하여라.

14. 사람들은 자기 꿈과 기대 속에 갇혀 살고 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내 팔자가 그렇구나.” 하고 각종으로 생각하면서 포기해 버린다.
15. 성자의 기대 속에서 살면, 꿈도 이루고 기대도 이루게 된다.
16. 성자가 기대하시는 길로 갔어도 얻지 못할 때가 있다. 이는 자기가 ‘끝까지 안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대대로 안 된 것이다. 성자가 기대하시는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가야 된다. ‘그 길 끝’에 기대하는 바를 얻을 때가 많다. 더러는 기대하는 바를 ‘과정 중’에 얻기도 하지만, 핵심은 거의 ‘끝’에 얻는다.
17.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기대가 어긋난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 노력에 기대서 행해야 된다.
18. 자기 노력과 책임분담에 기대어라.
19.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책임을 하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나님과 성자께 너무 기대다.
20. 모래땅을 1m만 파면 물이 흘러가는데, 하나님과 성자만 쳐다보고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오히려 기대가 어긋난다. 하나님과 성자는 물이 흘러가게 해 주셨고 그곳까지 너를 인도하셨으니, 너도 땅을 파는 노력을 하여라.
21.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은 너무 하나님 등에만 기대고, 너무 주의 가슴에만 기대며 기대만 한다. 자꾸 벽에 기대는 자는 습관이 들듯이, 신앙도 그러하다.
22. 엄마가 밥을 해 주면, 먹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된다. 하나님과 성자가 다 해 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된다. 기도하여 깨닫고 행하여라. 그러면 얻는다. 그러고도 힘이 남는다.
23. 하나님과 성자는 우리의 일꾼이 아니다. 코치하시고, 멘토링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육이 할 일은 육이 해야 된다.
24. 우리는 하나님과 성자의 육이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가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25. 육신은 행함으로 느끼고, 행함으로 흡수시키고, 행함으로 몸에 엔도르핀이 발생하여 기뻐하고, 행함으로 살도 찌고 뼈도 단단해지고 마음도 몸도 성장하고 단단해진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는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보고 행하라고 하신다. 행할 때는 하나님과 성자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26. 인간은 행하는 맛으로 산다.
27.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옆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어 앉아서 먹고 누워서 먹기만 하다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방에서만 살다가 죽는다.
28. 인간은 행동을 안 할수록 기능이 마비된다. 육신도, 마음·정신·생각도 그러하다.
29. 인간은 행할수록 신이 된다.
30. 그 시간에 늦으면 늦은 대로 행할 것을 행하여라.
31. 인간은 변화의 역사다.
32. 자기 변화다.
33. 행하면 변화된다.

34. ‘자기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고 희망이 없어진다. ‘자기 변화’는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는 데서 일어난다.

35. 무엇이든지 행하면 작든지 크든지 역사가 시작된다.

<2013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 전에 뇌다. 뇌가 굳으면 생각도 굳은 뇌대로 생각한다.

2. 뇌세포가 굳으면 생각을 좋게 하려 해도 못 한다.

3. 몸의 체질이 굳어 있으면 운동해서 풀듯이, 뇌도 여러 번 반복해서 굳어진 것을 풀고서 생각해야 생각대로 해진다.

4. 몸이 굳어지듯 뇌도 굳어진다. 뇌가 굳어지면 생각해도 생각대로 안 된다.

5. 피곤하면 코피가 나듯이, 뇌가 굳어 있으면 생각해도 안 된다.

6. 뇌는 각종으로 굳어진다.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며 행하는 대로 굳어진다.

7. 농사일을 하면 뇌가 농사 쪽으로 굳어지고, 공부하면 뇌가 공부 쪽으로 굳어지고, 잠을 많이 자면 뇌도 잠을 많이 자는 쪽으로 굳어진다.

8. 뇌도 육체다. 육이 어떤 체질이 되듯이 뇌도 어떤 체질이 된다. 체질이 되면 마치 초록색 나뭇잎이 단풍이 들어 색이 변한 것같이 뇌도 색이 변한다.

9. 손으로 일을 많이 하면 손바닥에 굳살이 박혀 변한다. 뇌도 변하면 그같이 된다. 과학적으로 보면 자기 생각대로 뇌 색깔이 노랑계, 파랑계, 붉게 변해 있다.

10. 뇌가 굳어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도 듣는 데서 끝난다.

11. 뇌가 굳어 있는 자는 시대 말씀을 넣어 줘도 듣는 데서 좋아하며 끝난다.

12. 어떤 자는 자기가 듣는 대로 뇌가 굳어서 옳은 말을 해도 아예 안 받아들인다. 이런 자는 마음도 생각도 굳은 자다.

13. 뇌가 굳은 자는 옳은 말을 했을 때 “실천할게요.” 대답해도 실제로 행하지 못한다. 굳은 뇌를 먼저 고쳐야 된다.

14. 가령 잠자는 자를 깨워 놓으면 뇌가 잠으로 굳어 있는 상태라서 바로 안 일어나진다. 한참 동안 찬바람을 쐬면 일어나진다. 이와 같이 뇌가 자기 체질대로 굳어 있는 자는 자기 뇌가 굳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먼저 굳은 뇌를 풀어야 행해진다.

15. 어깨가 굳고, 허리가 굳고, 몸이 굳으면 잘 안 퍼진다. 뇌도 굳으면 잘 안 퍼진다. 뇌가 굳지 않게 매일 행해야 된다.

16. 자기 몸을 연구하면서 뇌가 굳었는지 보아라. 어깨와 허리와 몸이 굳은 것같이 뇌가 굳으면, 생각해도 잘 행해지지 않는다. 생각하기 전에 굳은 뇌를 풀어야 한다.

17. 뇌가 굳으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며 하고자 해도 실천이 안 된다. 의학적으로 봐도, 영계로 봐도 뇌의 색깔이 변했기 때문이다. 뇌가 굳은 것이다.

18. 차가 방향을 트는 부분인 운전대가 고장 나 있으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다. ‘생각’은 운전대와 같다.
19. 뇌가 굳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하면 행해진다. 그러나 뇌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생각해도 행해지지 않는다.
20. 노인들은 뇌가 굳어 있어서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난다. 뇌가 굳어 있기 때문이다.
21. 기성인들은 뇌가 굳어 있다. 기성의 체질로 굳어 있다. 고로 시대 말씀을 줘도 뇌 체질이 굳어 있기에 행여 마음으로는 좋아해도 행동이 안 된다.
22. 젊은 자도 어떤 것에 습관이 되어 뇌가 굳어 있으면, 옆에서 옳은 것을 말해도 그때뿐이지 행하지 않는다.
23. 뇌가 이성으로 굳어 있고, 오락으로 굳어 있고, 세상으로 굳어 있고 중독되어 있으면... 옳은 것을 들어도 그중의 한두 가지만 구사일생으로 겨우 행하게 된다.
24. 우상 종교인들이나 각 교파의 종교인들을 보면, 그쪽으로 뇌가 굳어 있기에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뇌가 굳어 있기에 마치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은 못 먹듯이 시대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 자기 체질, 뇌 체질대로 행해야 천국이다.
25. 지옥 체질이 된 자를 천국에 갖다 놔도 안 맞다며 기어 나온다. 천국에 가려면, 지상에서 뇌가 천국 체질로 굳어지게 행해야 된다.
26. 건강하게 살려고 짜고 맵게 안 먹는 사람은 짜고 맵게 먹는 사람과는 체질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27.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술 담배가 체질이 된 사람과는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28. 건강하려면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야지, 생각만 건강하게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29. 체질을 건강하게 길들이려면, 생각도 건강하게 하고 몸으로도 행하기다. 신앙도 그러하다.
30.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뇌 체질’과 ‘몸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31. 운동선수는 자기가 운동하는 종목이 체질이 되어 안 하면 힘들어서 못 견딘다. 성자와도 분체와도 뇌 체질, 마음 체질, 생각 체질, 몸 체질이 맞아서 그와 같이 굳어 버리게 만들어야 천국 가기 쉽다. 휴거되고 싶으면 몸도, 생각도, 뇌도 천국 체질로 굳어지게 하여라.
32. 체질이 되면 하는 것이 쉽다.

<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33. 뇌가 나쁘게 굳은 것을 고쳐라. 그리고 생각을 바로 하여라.
34. 설교를 듣고 끝나는 자는 젊어도 뇌가 굳은 자다. 영의 눈으로 보면 뇌가 굳어서 자기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색을 띠고 있다.
35. 어깨, 목, 허리, 몸이 굳어 있으면 매일 수백 번씩 전신 운동을 해야 된다. 안 쓰면 굳는다. 뇌도 안 쓰면 편안한 것만 좋아하게 굳어 버린다.

36. 뇌는 눈으로 보는 대로 굳고, 귀로 듣는 대로 굳고, 생각하는 대로 굳고, 몸으로 접하는 대로 굳고, 몸으로 행하는 대로 굳고,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굳는다.

37. 10대들도 자기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뇌가 굳어 있다. 그러니 옳은 말을 해 줘도 그때뿐이다.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 교육하고 가르쳐서 굳어진 뇌를 풀어 줘야 된다. 그 후에 다시 올바른 것을 넣어 주고, 반복해서 실천하게 해야 된다.

38. 어깨, 목, 허리가 굳은 자는 먼저 뜨거운 물에 풀어 주고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여러 번, 수십 번씩 반복해서 잡아야 된다. 뇌와 생각과 몸이 굳은 자도 풀어서 고쳐야 된다.

39. 선생은 매일 수백 번씩 전신 운동을 하기에 몸에 굳어서 아픈 곳이 없다. 신앙도 각종으로 행해야 각 과목이 굳어 지지 않는다.

40. 진리와 성령의 뜨거운 불로 굳은 몸과 생각과 뇌를 열 내서 풀어야 된다.

41. 젊어도 허리가 굳으면 구부리고 다녀야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젊은 자도 나이 든 자도 신앙의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는 자들이 영계에서 보면 많다. 안 고치면 영적 불구자가 되어 휴거되지 않는다.

42. 10대, 20대 젊은이들도 신앙의 불구자가 되어 구부리고 다닌다. 행하지 않으니 굳어 버린 것이다.

43. 영계에서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좋은 별장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니 세금과 관리비를 계속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 좋은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 6억을 달라고 해서 “2억이면 사겠다. 안 팔면, 그마저도 못 받고 세금과 관리비로 다 날리고 끝난다.” 했다. / 욕이 게으른 자는 의를 행치 못하여 자기 좋은 영의 집을 그같이 날리게 된다. 시간이 돈이다. 하늘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돈이 되어 자기 영의 집을 뺏기지 않는다.

44. 굳은 뇌는 한 기간을 정해 놓고 1차, 2차, 3차 행하면서 풀어야 된다. 그러면 굳은 뇌 색깔이 좋게 변한다.

45. 앞으로는 ‘말하는 것’도 안 보고, ‘행하는 것’도 안 본다. 거짓으로 속이니, 영으로 각자의 ‘뇌’를 볼 것이다. 뇌를 보면, 각자 행하고 있는 것이 색으로 나타나 있다. 하나님도 성자도 ‘뇌’를 보신다. 뇌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것을 뇌가 색깔로 다 가지고 있다.

46. 새벽에 잠으로 뇌가 굳어 있게 하지 말아라!

47. 뇌에 성자의 사랑이 꽉 차 있고, 시대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천이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런 자의 영은 휴거된 영이다.

48. 뇌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쓰면, 마치 시골에 쟁기나 농기구가 오래돼도 닳으면 번쩍이듯 번쩍인다.

49. 뇌가 빛나야 육도 혼도 영도 빛난다.

50. 희망의 빛이 내려면 성자 사랑, 주 사랑이다.

51. 성자와 같이 하면 ‘의’가 되고, 혼자 하면 ‘죄’가 된다.

52. 혼자 세상 것을 해 봤자 결국 ‘죄’로 끝난다. 뻔하다. 누구나 농사를 지으면 끝을 안 봐도 끝은 ‘농사’로 끝나듯 그러하다.

53. 이성 세계, 물질세계, 노는 세계는 모두 다 결국 그 세계로 끝난다.

54. 고생돼도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라. 그러면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

55. 고생돼도 천국 향해 생명길로 올라가라. 의심 말고, 뒤에 미련을 두지 말고 가라. 행위대로 계속해서 받는다.

56. 어떤 자는 같이 오다가 섭리 길을 떠나갔다. 그에게 미련을 가지고 육계에서는 못 보니 영계에서 그 상황을 봤다. 인생 꽃이 지고 가을이 되어 가을 단풍이 되어 있었다. 깨달았다. '성자 안의 내 정원에 있을 때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아름다웠지. 그러나 떠나니 바로 변했구나.' 그 상황을 보니 아쉬운 마음과 미련이 일순간 사라졌다.

57. 같이 오다가 섭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옛날에 기를 때를 생각하고 보고파서 만나 보았다. 육의 꽃은 저서 화려한 것은 흔적도 없었다. 키울 때는 꽃이 피고 빛났는데, 이제는 영적인 신앙의 것만 보였다. 인생 꽃 피고 새 울면 끝난다. 역시 '영원한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제 할 일을 하게 놔두신다. 꽃이 지고, 흐르는 계곡의 물이 마르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58. 인생 어디에서 살든지 청춘은 한때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쓰면, 영원히 남아져 영원히 누리게 된다.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 청춘을 쓰면, 마치 꽃 피는 화분에 물을 주고 퇴비한 격이라서 순간 인생 꽃이 피고 끝난다. 청춘을 귀히 쓴 자는 평생 쓰고 있다.

59. 인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순간 꽃이 피고 지듯 순간 끝나기도 하고, 평생, 혹은 영원히 가기도 한다.

60. 이 시간에 내가 잠을 잔다면 일순간 잠으로 끝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내 건강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시간에 잠언을 쓰니 인생 일생 동안 가고, 그 공적이 영원까지 가고, 이 잠언을 읽는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1000년 동안 진리의 빛이 되어 사람들을 비취 준다. 행한 것과 안 한 것은 영원한 유(有)와 무(無)의 차이이다.

61. 성자를 위해, 자기를 위해 '영원한 것'과 연결된 것을 행하여라.

62. 행해도 '영원한 것'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육에서 끝난다.

63. 똑같이 수고해도 육을 위해 산 자는 육으로 끝나고, 영을 위해 산 자는 육도 하늘 몸이 되어 살고, 영도 영원히 존재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누린다.

64. 지난날 영을 위해서 산 자도 가다가 말면, 거기서 끝난다.

65. 존재할 때까지만 거기서 존재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66. 뇌가 굳으면, 생각해도 행해지지 않는다.

67. 자기가 행하는 대로 발견한다.

68. 뇌는 행하는 만큼 굳어 있지 않다.

69. 뇌가 굳어 있으면, 말을 들을 때만 기억한다.

70. 사람은 잠을 자 놓고 거기서 더 자려고 한다. 알고 다스려라!

71. 기다린 자를 맞은 자는 기다린다는 말을 안 하듯이, 이제는 휴거 중이니 '재림'이라는 말을 안 하고 '휴거'라는 말만 한다. 때가 되면 설교 중에 '휴거'라는 말도 안 나온다. 나와도 교육상 나올 뿐이다. 설교는 현실에 성자가 행하시는 것을 중계하는 것이다.

72. 여름이 올 때나 여름이 온다고 하지, 여름이 오면 여름이 온다는 말은 안 쓴다. 재림 이야기도 이래서 안 하는 것이다. 기성은 재림 이야기를 한다. 못 맞았으니 맞기 위해서다.
73. 성경을 봐도 예수님은 처음에나 “주가 온다. 문 앞에 온다.” 했지 후에는 다른 말씀만 하셨다. 주가 온 것을 아니. 제자들이 주가 왔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74. 뇌가 굳어 있는 자일수록 말할 때만 기억한다. 고로 즉시 기록해야 된다.
75. 뇌에 기록이 안 되면, 종이에 기록하여라.
76. 늙어서 뇌가 굳고, 뇌를 쓰지 않아서 뇌가 굳고, 다른 사고를 하다가 뇌가 굳어진단다. 종교, 정치, 경제, 학문, 예술 등 구시대인들은 모두 뇌가 구시대로 굳어져 있다. 허리가 새우같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다. 이들 말고 굳지 않은 자들을 찾아라. 굳은 자들에게 투자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77.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을 보고 목이 굳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다. 곧 마음이 굳은 것을 책망하신 것이다.
78. 이제 성자는 뇌가 굳은 자들을 책망하신다.
79. 뇌는 생각하는 대로 굳어진단다.
80. 뇌는 행하는 대로 굳어진단다.
81.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를 향한 의의 마음으로 이마를 금강석처럼 굳게 해 주겠다.” 하셨다. 뇌를 굳세게 해 준다 함이다.
82. 마음과 생각이 굳어 있으면, 뇌도 그와 같이 굳어 있다.
83. 뇌가 구시대 말씀으로 굳어 있는 자에게 뇌를 풀어 주지 않고 새 시대 말씀을 전해 주면, 그때뿐이다. 그 시간에 뇌가 구시대로 굳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새 시대 말씀을 전하면, 기다렸기에 기뻐 환영하며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말씀을 빨아들이고 생각과 행실도 변화를 일으킨다.
84. 뇌가 안심같이, 순두부같이 부드러운 자는 치타같이 늘 뛰고 달리며 뇌를 흔드니 부드러운 것이다.
85. 뇌로 인해 가치가 좌우된다. 굳은 뇌는 죽은 뇌다. 마치 시장의 죽은 고기같이 혈하다. 저마다 굳은 뇌를 놓고 기도하고, 뛰고 달리면서 부지런히 행하면 봄에 얼음이 녹듯이 점점 녹는다.
86. 뇌가 굳어 있으면 뇌의 기능도 굳어 있다. 고로 봐도 들어도 행할 것이 행해지지 않는다. 아예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뇌가 마치 꺼진 불같이 캄캄하다.
87. 뇌가 굳어 있는 자는 성자가 사랑해도 못 느낀다. 감각이 죽어서 그러하다.
88. (주 편) 나는 항상 뇌를 본다.
89. (주 편) 뇌를 보는 눈을 떠라.
90. 뇌는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잔다. 생각만 하면 깨어나 본다.

91. 뇌는 행하지 않으면 잔다. 행하면 깨어나 본다.

92. 뇌는 생각하지 않으면 무의식이다. 생각하면 생각한 것을 의식한다.

93. 게으른 자는 뇌 회전이 안 된다. 생각이 늦다.

94. 욕이 굳으면 뇌가 굳는다.

95. 뇌 불구는 욕 불구다.

<2013년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 '체질' 바탕 위에 '신앙'이다.

2. 신앙은 바로잡아 주기다.

3. 진리다. 말씀으로 삶을 잡아 주기다.

4.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잡기와, 관리자를 통해 잡아 주기다.

5. 모르는 자도 편하고, 아는 자도 편하다. 체질과 생각과 삶이 그렇게 길이 들었기 때문이다.

6. 모르는 자가 알려면 힘들다. 그래서 안 한다. 배우고 행하여 고쳐야 된다.

7. 사람은 저마다 앉은 자세도 길들인 대로 편하다. 하지만 틀어진 자세를 그냥 놔두면, 결국 척추와 몸이 돌아가서 그 대로 굳어서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자세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8. 불편하게 앉으나, 편하게 앉으나 처음에는 똑같이 편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가면 불편하게 앉은 자세로는 못 견딘다. 인생의 삶도,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9. 편안하게 사는 삶이 있으나 실상 불편하게 살게 된다. 이는 마치 편하게 앉아 있으나 실상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과 같다.

10. 편한 자세가 있어 편히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불편하게 앉아서 고생하듯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있는데도 불편하게 살아간다.

11. 저마다 길들인 대로 자세를 잡으며 편안하다 한다. 온전치 못한 자세는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한다. 세상의 삶도 그러하고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12. 틀어진 것은 말씀으로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

13. 신앙의 삶을 말씀으로 바로 고치기다!

14. 불편하게 앉아서 사는데도 한 번 벗어나서 그대로 길들이면 그것이 편하다고 한다. 신앙이 벗어난 자들도 그것이 편하다 한다. 삶은 자세를 길들여 사는 것과 같다.

15. 불편한 자세로 길들여서 사는 자는 그 자세가 편하다고 한다. 바른 자세로 길들여서 사는 자는 그 자세가 낫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 영이 사망의 세계, 혹은 생명의 세계로 결정되어 가게 된다.

16. 자세가 바르고 편해야 후에 몸에 문제가 없다. 자세가 빳나간 상태에서 편하면 후에 몸에 문제가 생긴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17. 음식도 짜고 맵게 먹는 것이 자기는 편하다고 하지만, 결과는 병이 덮쳐서 못 견딘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본인 말대로 편하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찢값을 받으면 그렇게도 고통스러워서 못 견딘다.
18. 저마다 자기가 길들인 대로 편하다. 그러나 나쁘게 길들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후에 병이 되듯 죄가 되어 행한 대로 받기에 못 견딘다. 육은 견딜 만하다. 그러나 영은 못 견딘다. 고생돼도 오직 전능자의 말씀 따라 바로 살기다.
19. 매일 자세를 바로 교정하며 살듯이, 매일 고생돼도 삶을 교정하며 살아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온전히 교정하며 살아야 된다.
20. 한 번 길을 들이면 평생 고치기 힘든 것도 있다. 체질이 되면 불편해도, 안 좋아도, 나빠도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21.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은 바른 자세의 삶이기 때문에 삶이 구부러진 사람일수록 구부러진 삶을 펴자니 아프고 힘들다.
22. 육신 자세, 신앙 자세다.
23. 육신 체질 자세, 마음·정신·생각 체질 자세다.
24. 혼 체질 자세, 영 체질 자세다.
25. 육과 혼과 영의 체질은 점점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 되어 간다.
26. 중심을 잃은 자세도 처음에는 편하다. 그러나 금방 몸 전체에 고통이 온다.
27. 중심을 제대로 잡은 자세도 처음에는 불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몸 전체가 편하다. 고로 온전하게 길들이고 체질화시켜야 한다. 신앙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중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
28. 중심을 벗어난 자는 처음에는 편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능자의 법을 벗어났는데 편할 리가 있겠느냐. 영이 지옥의 선고를 받아도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잘 모른다. 육신이 지옥의 고통을 겪지만, 그때까지는 영이 받을 고통을 잘 모른다. 육신이 죽고 자기 혼이 마음·정신·생각과 함께 자기 영과 합쳐질 때, 그때는 자기 육체가 지옥에 들어간 것같이 괴롭고 고통인데 1000배 이상 고통스럽다. 고로 1초도 못 견딘다.
29. 이 같은 고통을 안 받으려면, 매일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힘들어도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30. 자기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누가 말을 안 해도 누가 고통을 안 줘도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자기 행위대로 스스로 심판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행위도 그러하다.

<2013년 5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마치 날개 달린 날짐승 같아서 잡으면 날아가지 못하고, 놓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2. 시간은 잡고서 썬야 시간이 날아가지 못한다.
3. 시간은 그냥 놔두면 필요 없이 계속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4. 시간을 잡으려면, 그 시간에 합당한 일을 하여라.
5. 그 시간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거나 시간에 늦는 자는 모두 시간을 날려 보내는 자다.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날려 보내고, 필요 이상으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날려 보내며 시간을 허송한다.
6. 성자 주님의 축복 중에서 큰 축복은 바로 '시간의 축복'이다. 시간을 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라. 그 시간으로 자기 소원을 위해서 수고하여 희망을 이루는 것이다.
7. 성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는 시간을 다 뺏긴다. 고로 성자 주님도 그에게는 시간의 축복을 안 주신다.
8. 시간을 주었는데 자기중심과 자기 주관으로 쓰면, 시간의 축복을 가지고 헛수고하는 것이다. 오직 성자 주님의 뜻대로 시간을 쓰고 살아야 시간의 수고가 길이길이 남아진다.
9. '시간'을 다스리면, '사탄'도 다스리고 '모든 자들'도 다스리게 된다.
10. 어떤 사람은 풍돈을 벌기 위해 거액의 시간을 쓰고, 어떤 자는 거액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시간을 넷물처럼 흘려보낸다.
11. 거액의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고, 들은 말씀들을 행하여라.
12. 헛된 것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더욱 험한 인생길을 가게 된다.
13. 성자 주님과 분체와 일체 되어 같이 가면, 자기 시간을 헛되게 쓸 시간이 없다.
14. 시간을 온전히 쓰는 자는 시간을 제대로 쓰고 그로 인해 얻을 것을 얻는다. 그로 인해 시간이 더욱 귀하다는 것을 알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서 점점 더 얻는 길로 간다.
15. 고생돼도 시간을 얻어야 된다.
16.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시간을 잡아라. 그 시간을 가지고 성자 주님을 전심으로 좇아라.
17. 시간은 돈이다. 황금이다. 하지만 그 시간에 황금을 캐야만 황금 시간이다.
18. 작은 것을 크게 보면 못 잡는다. 큰 것을 작게 봐도 못 잡는다.
19. '자기 마음'에서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된다.
20. 치타처럼 순간 빨리 뛰어야 순간 잡을 것을 사냥한다.
21.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간의 판단'에서 결정된다.
22. 성자 주님은 시간이다. 성자 주님을 양손에 잡아야 된다.
23. 성자 주님을 잡으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24.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날아간 시간도 잡아서 쓰고, 남아서 버리는 시간도 잡아서 쓴다.

25. 어떤 사람은 귀한 시간을 가지고 사망길을 가는 데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26. 그 길의 목적지는 지옥인데, 몰라서 그 길로 가면서 희망에 차서 인생을 살고 있다.
27.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길이 기뻐도 결국은 지옥길이다. 성자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사는 길이 고생돼도 결국은 천국길이다.
28.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전체가 얻을 것을 얻게 된다. *새벽 잠언을 하루에 많이 줘야 한다. 조금씩만 주면 전체의 윤곽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흐름으로 쓴 잠언 전체를 봐야 전체 내용을 깨닫는다. 성자 주님은 “새벽 잠언을 많이 주려면, 네가 잠언을 많이 받으면 된다.” 하셨다. 그 말씀대로 하여 이미 하루에 새벽 잠언을 20~40개씩 많이 주고 있다.
29. 시간을 귀히 쓰지 못한 것은 ‘뛰어서’ 채워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쓰게 된다.
30.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31. 인생 육의 삶을 위해서 시간을 모두 다 쓰면 땅바닥을 면치 못한다.
32. 영원한 세계 ‘천국’과, 영원한 존재 ‘영’을 위해서 시간을 써라.
33. 하나님은 한 번의 인생을 주신다. 이는 마치 한 시간과 같다. 그리고 한 인생마다 일생이라는 시간을 주신다. 이는 마치 하루와 같다.
34.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고 보람 있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일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일생의 시간을 쓰고 있다.
35. 인간은 시간의 축복을 받았다. 그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써야만, 땅바닥을 면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36. 온 세상 모든 자들이 세상을 위해 쓴 시간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보다 값도 안 나가고 남아지는 것도 없다.
37. 신령하게 시간을 써야 적은 시간을 엄청나게 쓰게 된다.
38. 영의 시간과 육의 시간은 1000:1로 본다.
39. 육의 시간으로는 짧아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다. 육으로는 높은 영적 단계에 못 닿는다. 영이 날아가서 높은 영의 세계에 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 육의 시간으로는 땅에 속한 것만 할 뿐이다.

<2013년 6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40. 시간을 성자 주님과 같이 쓰는 자는 시간의 지혜를 받은 자다.
41. 미련한 행실은 마치 자기 옷 속에 벌이 들어가서 자기 살에 붙어 다니면서 쏘는 것과 같다. 벌에 쏘인 곳에 약을 바르면서, 옷을 벗고 벌을 잡을 줄은 모른다. 시간을 미련하게 보내는 자도 그러하다.
42. 자기 옷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쏘는 벌을 잡아 죽이는 자는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는 자와 같다.
43. 미련한 자는 땅벌 집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 벌이 와서 자기를 쏘는데도 계속 기도만 한다. 땅벌들이 온몸에

붙어서 쏘니 그제야 못 견디고 기어 나온다. 그러면서 ‘왜 기도하는데 땅벌이 쏘지?’ 한다.

44. 미련한 자의 미련한 행위로 인해서 땅벌이 성이 나서 지혜로운 자까지 쫓아다니며 쏘게 한다.

4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계속 미련한 행위를 한다.

46. 미련한 자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47. 욕심은 미련함이다. 고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낳는다.

48. 늦으면 늦은 대로 꼭 할 일을 해야 된다. 늦었다고 해서 안 씻은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늦었다고 안 씻으면, 시간이 가면서 더 곱곱하고 간지럽다. 늦으면 늦은 대로 씻고 닦아야 된다.

49. 미련한 자의 행위와 죄로 인해서 사고가 난 후에야 자극을 받고 그나마 안 죽은 것으로 만족한다.

50. 지혜로웠으면 아예 그 엄청난 해를 안 받았을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지혜는 하나님이다. 성자이다. 그가 보낸 자다.

51.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이고, 저 세상은 영의 세상이다. 이 세상 육의 세상에서 저 세상 영의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52.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관심을 갖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행해 주는 것이다. 관심을 잃으면 사랑을 잃는다.

53. 영의 세상의 삶도 관심을 가져야 영의 세상을 잃지 않고 영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

54. 알고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55. 인간의 삶은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삶과 ‘몸’으로 누리고 사는 삶, 두 가지가 있다.

56. ‘몸’으로 못다 누리는 것은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57. 몸으로만 누리려 하지 말아라.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은 세상에서 몸으로는 다 누릴 수 없다. 마음으로 누리려 된다.

58. 창조주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그에 해당되게 살기만 하면 되게 해 주셨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와 같이 살지 않는다. 고로 마음으로 조금만 누리다가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다.

59. 전능자 하나님은 무엇을 해 주면 다 해 주신다. 무엇을 만들면 아주 온전하게 만드신다. 고로 만물도 온전하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든 것을 쓰면서도 온전해지지 못한다.

60. 하면 순간에 할 일인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씩 미뤘다가 한다.

61. 자기 할 일을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번개같이 행동하듯 하여라. 그러면 순간에 할 수 있다.

62. 하나님은 ‘만물’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시고, ‘말씀’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신다. 고로 인간이 만물을 쓰고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 온전하게 안 할 뿐이다.

63. 사람이 온전한 것을 쓰면, 온전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64. 온전하게 살아 보려고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행해야 온전하게 된다.

65.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길을 가더라도 앉아서 조심스럽게 가고, 기어서 조심스럽게 가면 안 넘어진다.

66. 고생돼도 안전하게 가자!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와 왜 그날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지나가 봐야 절실히 깨닫고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흘리게 된다.

2. 4월 21일쯤에 월명동에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생각하고, 성자에게 4월 21일에 부활절 주일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다. 섭리역사 부활과 독립의 해의 첫 부활절 주일예배이니, 꽃축제 겸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했다. 이때 성자는 “14일에 해라.” 하셨다. 그 후에 확인하니, 20일이 지나면 월명동에 벚꽃이 피겠다고 하여 성자께서 14일을 부활절 주일로 정하셨지만, 다시 “21일에 할까요? 아직 벚꽃 몽우리도 안 맺어서 20일이 지나야 겨우 꽃을 보겠어요.” 했다. 성자는 “그냥 14일에 해라.” 하셨다. “그러면 그날 꽃도 피게 해 주시고, 날씨도 거의 미치도록 좋게 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니, 성자는 “알았다.” 하셨다. 14일 오전에 비가 많이 와서 마른 땅에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 주셨고, 이어서 따뜻하게 햇볕이 내리쬐면서 날씨가 거의 미치도록 좋았다고 했다. 그리고 벚꽃도 피어서 모두 보았다. 섭리인의 웃는 얼굴이 마치 환한 꽃을 보는 듯했다. 월명동에 온 사람들은 “의례히 꽃 필 때가 되니 꽃이 폈지.” 했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었다. 성자에게 간구했기에 기적으로 피었다. 그 후 4월 19일에는 저녁부터 비가 쏟아지고, 비가 눈으로 바뀌어 눈이 쏟아졌다. 월명동은 대지에 눈이 쌓여서 눈 범벅이 되었다. 날씨는 너무 추웠다. 만일 21일로 부활절 예배를 변경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래서 내가 “14일에는 안 됩니다. 21일로 날짜를 변경하면 어때요?”하며 그렇게도 말했어도 성자가 안 된다고 했구나. 역시 성자 주님은 신부가 모르고 아무리 졸라도 미리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절실히 깨닫고 감사 감격했다. 또한 부활절 주일말씀을 쓸 때, 성자께서 “이번 말씀은 영상을 만들지 말자. 화면을 쓰지 마라. 그냥 깔끔하게 말씀만 전하자. 그러면 더 말씀에 집중된다.” 하셨다. 그래서 그냥 하게 했다. 행사를 진행하는 자들은 “화면이 없으면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없으니, 꼭 화면이 필요합니다.” 했다. 그러나 성자의 말씀대로 했다. 그날 성자께서 거의 미치도록 주셔서 화면을 준비했어도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부셨다. 화면이 있었어도 월명동에 온 사람들은 못 봤을 것이다. 그리고 화면이 없으니 결국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전한 조은이도, 말씀을 들은 자들도 간증하며 감탄했다. 성자가 분체와 함께 한 일은 지나 보면 안다. 그리고 감탄하게 된다.

3. 월명동의 벚꽃을 보려고 21일에 부활절 주일예배를 드렸으면, 19일 밤에 함박눈이 쏟아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기에 10000명이 추위에 떨었을 것이고, 모두 진흙탕 수렁에서 온종일 행사하며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끔찍한 일을 할 뻔했구나. 항상 전능하신 성자에게 묻는 것이 천국이다.’ 깨닫고 감탄하며 성자의 역사를 잠언으로 써서 남긴다.

4. 그렇게도 타락하지 말고 주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도 세상으로 가서 이성으로 타락하며 산 자들이 있다. 그중의 어떤 자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음으로 그 영이 사망으로 가서 살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다. 지금도 영계에 가서 보고 왔다. 돌아올 수 있냐고 성자에게 물으니 “어렵다.” 하셨다. 자기가 좋아서 허락하고 행하여 자기가 자기 영을 사망으로 보낸 것이다. 만일 타락했다고 내가 그들을 떠밀어 내어 그 영이 지옥으로 갔으면 내 마음이 괴로울 텐데,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 이를 생각하니 감격했다.

5. 지옥은 누구든지 가면 안 된다. 지옥은 혀를 깨물며 이를 가는, 상상도 못 하는 최고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이다. 이것을 모르고 간다.

6. 지옥 쪽으로 가면서도 그 육신은 지옥을 빠져리게 못 느낀다. 그 영이 지옥으로 가서 지옥문이 잠겨 지옥에 처했을 때, 지옥의 처절한 고통을 받으면서 그제야 안다. 지옥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 얼마나 잔인한 고통을 받는지,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도 모른다. 영의 살과 뼈가 녹고 썩어 들어가는 고통이다. 성자가 그 육을 쓰고 자기를 구해 주던 때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그제야 ‘왜 내가 세상 이성과 향락을 즐기며 성자와 분체에게 등을 돌렸

나? 내가 온 곳이 결국 이곳인가? 육은 순간 쾌락을 누렸건만...' 하면서, 혈기와 분노가 나서 자기 허를 물고 질경질 경 찢고, 자기 영의 몸을 쥐어뜯는다.

7. 몰라서 지옥으로 간다.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육신이 가시밭 을 가듯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 모른다. 지옥은 자기 좋아서 세상 이성과 향락으로 즐기며 사는 편한 길이다. 속히 즐기 면서 지옥으로 간 것이다.

8.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구원자를 통해서 성자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그 말씀을 지키면서, 고 생태도 주와 함께 가는 생명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편한 길이 아니다. 천국으로 오르는 생명길이다. 천국은 위에 있어서 올라가는 길이라 힘들고, 지옥과 무저갱과 음부는 아래에 있어서 내려가는 길이라 가기 쉽다.

9. 천국에 안 가 본 자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지옥에 안 가 본 자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

10. 영적인 자나 성자가 허락한 자 중에 천국과 지옥에 가 본 자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잠깐 견학해서는 천국이 좋은 것도, 지옥이 고통스러운 것도 일부만 안다.

11.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이 거의 천국도 지옥도 모르고 산다. 고로 없다고 부정하는 자들이 많다. 지구가 있듯이 천국 도 지옥도 확실히 있다. 누군가 결심하고 마음먹고 지옥에 가 보고자 하면, 지옥에 가서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천국 은 특정 지역이라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고, 또 합당한 자만이 갈 수 있다. 고로 천국을 견 학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12. 지옥 쪽은 저마다 꿈을 통해서 자기 혼이 많이 가 보게 된다. 그러나 봐도 지옥 쪽 고통의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른다.

13. 꿈에 활동하는 자신은 자기 혼체다. 혼체는 육체같이 완벽한 존재체다. 그 위에 자기 영체가 있다. 마음·정신·생각 이 혼체가 아니다. 육의 마음·정신·생각이 혼체의 마음·정신·생각 역할을 한다. 혼체는 영체에 속한 존재체다. 육체가 죽으면, 육의 마음·정신·생각을 혼체가 흡수하여 혼체는 영체와 일체 되고, 세상에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14. 지옥에 가기는 아주 쉽고, 천국에 가기는 아주 어렵다.

1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성자가 땅에서 쓰는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영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에 간다. / 모든 악을 버리고 의롭게 살면서 하늘의 법대로 살기가 힘 드니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산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기에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메시아를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 고로 지옥에 가기는 너무 쉽다. 어렵지 않다.

<2013년 6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혼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주와 함께 해야 된다.

2. '문제'만 주는 말이 있다. 기도하고 행하여 '답'을 찾아야 된다.

3. 어느 때는 '답'만 줄 때가 있다. 여기서도 답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 완전하다.

4. 가령 원했던 것을 얻었다 하자. 얻은 것을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된다. 누가 줬는지, 왜 줬는지, 어떻게 얻게 됐는지 아는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5. 가령 답이 '7'이라고 하자. '7'은 어디에 대한 답인지를 알아야 된다. '3+4'에 대한 답인지, '10-3'에 대한 답인지 알아야 '7'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안 것이다.
6. 어떤 답을 얻었어도, 어떤 원했던 것을 얻었어도 왜,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누가 해결해 줘서 얻었는지 알아야 된다.
7. 가령 자기가 원했던 자를 만났다 하자. 왜 만나게 됐는지 알아야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고 굳건하다.
8. 성자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을 두고, 어떻게 주셨는지 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9. 성경은 두 가지로 써져 있다. 어떤 곳은 '답'만 있고, 어떤 곳은 '문제'만 있다. 그 대상체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확실하게 알고 굳건하게 행한다.
10. 가령 '예수님은 메시아다.'가 답이라고 하자. 이것만 알고 따르면 약하다. 왜 사람이 메시아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내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답을 완전히 알고 확고하게 따르게 된다.
11. 답만 알아도 흔들린다. 문제를 가진 자들이 답을 가진 자들을 흔들면, 흔들리게 된다. 답과 문제, 문제와 답이다. 이것이 완전하다.
12. 가령 자기가 생각지 않은 곳에 갔다 하자. 가 있는 것이 답이다. 왜 그곳에 가 있는지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성자가 가 있게 했다 하자.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그곳에 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구한 것이 생각났다 하자. 그러면 문제를 깨달았으니, 그곳에 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할 것을 행하는 것이다!
13. 답과 문제다. 문제와 답이다.
14. 문제만 알면 답답하다. 답만 알면 답답하다.
15. 답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문제의 답을 알아야 된다.
16.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
17. 왜 뼈꼭새가 우는지, 두견새가 우는지, 소쩍새가 우는지 알아야 곤고하지 않고 기쁘다.
18. 왜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곤고하지 않다.
19. 예수님도 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괴로워했다. 고로 죽음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문제를 알고는 기뻐하며 가셨다.
20.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는 것은 천륜의 법이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답이다. 그런데 왜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고 육은 천국으로 휴거되지 않는지 알아야 육이 곤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육의 이론에 밀리지 않고, 혼도 영도 굳건하다.
21. 깨달는 것이 답이다.
22. 자기는 답이다. 상대는 문제다.
23. 어느 때는 자기가 문제이고, 상대가 답이다.

24. 답과 문제를 다 잡아야 곤고하지 않다.

25. 어느 날 한 제자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 보니,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왜 선물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생각이 깊다. 곤고하다.” 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나는 왜 선물을 줬지?” 하며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평소 신앙이 그런가?’ 생각했지만, 답이 시원찮았다. ‘괜히 줬네...’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편지로 물어 봤다. “너 혹시 성자 주님께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기도한 것이나, 혹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한 적 없나?” 했다. 그랬더니 답장이 오기를 “평소에 그런 말을 하면서 산 적이 있어요.” 했다. 그래서 편지하기를 “나는 성자의 심부름꾼으로 그의 분체이니, 성자께서 나를 통해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선물을 줬다.” 했다. 그랬더니 “저 깨달았어요! 제가 이것을 갖기 원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셨기에 잘 깨닫지 못하고 ‘혹시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나?’ 그 답을 알고 싶었어요.” 했다. 선생은 “네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도 너를 사랑해서 준 것이다. 고로 심부름꾼인 나를 통해서 주되, 직접 못 주니까 사람을 통해서 준 것이다. 성자 주님도, 나도 사랑하는 자에게 심부름을 시킨다.” 했다. 그 제자는 그제야 답의 문제를 풀고 기뻐하며 흔들림이 없었다.

26. 다만 알고 문제를 모르면 답이 흔들린다.

27. 시험을 볼 때도 답을 주며 문제를 쓰라고 할 때가 있고, 문제를 주며 답을 쓰라고 할 때가 있다.

28. 이 여자와 살고, 이 남자와 사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살다가 왜 이 사람과 같이 살게 됐는지 모르면 곤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헤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거나, 혹은 자기와 제일 잘 맞는 사람이거나, 그 사람에게 모순은 있어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 자기와 가장 잘 맞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좋아해서 짝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29. 계시받은 것도 그 계시에 대한 이론을 보고서 맞다고 결재한다. 계시가 맞아도 그에 대한 이론이 없으면, 그 계시를 모두에게 줘도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니 안 준다.

30. 지금까지 선생이 제자들과 4만 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보면, 섭리사에 와서 답을 얻고도 가다가 흔들리고 앉아서 우는 자가 있고, 섭리 길을 가기는 가는데 끝까지 기뻐하면서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는 ‘문제’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로 성자는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 환난이 일어나 찬바람이 불게 해 주신다. 그것이 그에게 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부딪힌 후에 알고 감사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좋은지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

31. 섭리사에서 그렇게 잘해 주고, 사랑해 주고, 환경을 좋게 해 줘도 왜 좋은지 모르고 가다가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파도와 풍랑을 만나서 진탕 고생한 후에 다시 섭리사에 온다. 그제야 호수와 같은 잔잔한 사랑을 느끼고, 호수와 같은 평온한 환경을 느끼고, 그때부터 좋아서 행하는 자도 있다.

32. 답을 얻었을 때 기뻐하며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총명한 자다.

33. 문제 속에서 문제를 안고 비바람을 맞으며 가는 자가 답을 알고 살면서도 흥청거리며 사는 자보다 낫다.

<2013년 6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34. 잔칫날이 닥치면 무조건 그때 잔치를 해야 된다. 잔칫날이 됐는데도 덜 갖췄다고 갖추고 있기만 하면 손해다. 잔치까지 망친다.

35. 덜 갖춰졌어도 혼인 잔칫날이다. 고로 잔치를 해야 된다.

36. 때가 되었으니, 무조건 그때에 맞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37. 신부가 흠이 있어도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행하여라. 가다가 보면 비가 와서 해결되든지, 눈이 와서 해결되든지 한다.
38. 잔칫날 갓출 음식 한두 개가 빠져서 “이런 어찌나? 빨리 밥상에 놓도록 사오자.” 하고, 빠진 음식을 사러 갔다. 그 시간에 손님들이 왔다. 결국 주인과 함께 먹지 못했다.
39. 주와 같이 하면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다. 고로 그것 한 가지라도 먹고 가듯 해야 된다.
40. 지혜는 깨닫는 것이다.
41. 시간이 없으면 핵적인 일만 하고 본다. 핵만 하면 된다.
42. 다 갖추고 핵을 못 하면 안 된다.
43. 핵을 했으면 만족해야 된다.
44. 새벽에 성자에게 잠언 한두 개만 받아도 내 영도 혼도 육도 족하다. 그런데 잠언 40~100개를 받고 써야 된다. 시대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그러하다. 각자에게 해당되는 잠언이 필요하니, 성자가 주신 잠언을 풀어서 적어도 40개, 70개, 100개는 쥐야 제대로 알기 때문이다.
45. 오늘 새벽에 성자에게 잠언 두 개를 받고, 그 잠언을 풀어서 다른 잠언들을 쓰니 여기까지 썼다. (화요일 새벽에 전한 잠언 ‘답도 알고, 문제도 알아야 완전하다. 곤고하지 않다.’라는 잠언을 쓰면서, 지금까지 이어진 잠언이다. 고로 시간상 날짜는 다르게 보내더라도 번호가 이어진 잠언은 한 맥의 잠언이니, 꼭 같이 봐야 된다.)
46. 성자에게 받은 두 가지 잠언을 풀어서 쓰니, 40개나 되었다.
47. 갖추고 와서 주께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주가 좋은 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더 크다. 주와 동행하다 보면 갖춰지기도 한다.
48.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와서 ‘이제 주가 나를 맞이해 주겠지.’ 생각하지 말아라.
49.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갖추면, 갖추고 와도 이미 주는 떠나서 못 만난다. 주가 “그냥 가자.” 할 때 신발이 한 짝 밖에 없어도 따라갔어야 된다.
50. 신부는 신랑 앞에 절대 순종이다. 신랑이 누구냐. 구원자가 아니냐.
51. 구원받을 자들에게 한 가지 특권이 있다. ‘순종’이다.
52. 주는 순종하지 않으면 같이 모으지 않고 해친다. 사탄이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53. 주는 전능자의 뜻이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이다.
54. 주가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주가 ‘죄’라고 말하면 ‘죄’가 된다.
55. 주가 죄를 판단한다. 고로 주가 ‘죄’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죄’라 말하면, 그것은 죄가 된다. 주가 ‘의’라 하면 누가 죄라 해도 ‘의’가 된다.
56. 자기는 의로 여기고 행했어도 주가 의롭지 않다고 하면 ‘죄’다.

57. 무용수가 잘했다고 했어도 채점자가 못했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상을 못 받는다.
58. 주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자를 보고 기뻐하며 “흠 없다.” 한다.
59. 주의 심정을 맞추고, 그다음에 자기 행위를 맞추기다.
60. 성자가 가자고 할 때, 눈을 비비고 신발을 끌면서 알몸이라도 따라가야 된다. 그때에 따라 가지 못하고 자기중심으로 갖추고 나오니, 그때는 주가 없고 새벽달만 운다.
61. 제때 급히 해 놓고, 때 지나면 해 놓은 것을 손질하는 것이다.
62. 밀물이 되기 전에 썰물 때 부지런히 조개를 고르고 줍기다.
63. 새벽은 썰물 때다. 고로 그때 급히 할 것을 해 놓고, 낮에 수정하고 손질하기다.
64. 이해가 지혜다.

<2013년 6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65. 어느 때는 주가 갖추고 따라와야 된다고 하고, 어느 때는 갖추지 말고 따라오라고 한다. 왜 그럴까? 상황에 따라서다. 그 상황은 말하지 않는다.
66. 주는 하지 말라고만 하지, 왜 하지 말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안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답을 받기 때문이다.
67. 어째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째서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신다.
68.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만 말하지,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는 다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자도 주도 그러하다. 어째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어째서 하라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고로 주가 하라고 했으면 “예! 아멘!”이다.
69. 성자가 답을 주면서 “이것을 해라.”라고만 했다. 왜, 어째서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해 줘야 한다고 하여 왜, 어째서 해야 된다고 말해 주니 그 일이 안 되었다. 이는 비밀이 드러나서 그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못 하게 된 것이다.
70. 가령 자기 사랑하는 자를 보고 “네 집이 썩어가고 보기 싫은 초가집이라서 사람들이 흠을 봐도 팔지도 말고 헐지도 말아라.” 했다 하자. 왜 팔지도 말고 헐지도 말아야 되는지 물어보지 말아라. 물을 것이 있고, 안 물을 것이 있지만, 알려 주면 안 되기에 그것은 안 가르쳐 주신다. 만일 “그 집터를 찾고 다니는 자가 있고, 또 거기에 상상 못 할 좋은 일이 있어서 그곳의 땅을 가진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줬다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보기 싫은 흠가를 안 뜯느냐. 왜 별것도 아닌 땅을 안 파느냐.” 하면, 속상해서 자랑 삼아 그들의 말을 공격하려고 그 땅의 비밀을 말하게 된다. 그러면 그 땅 주변의 다른 땅들도 주인이 귀한 것을 알고 안 판다. 자기 땅을 중시해서 다른 땅들도 사서 개발해야 하는데, 주변의 다른 땅 주인들이 안 파니까 개발하지 못하고 만다. 성자 앞에 만사가 다 그러하다. 월명동도 그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앞날을 다 알지 못하니, 월명동 주변의 땅이 헐값인데도 사지 못했다. 필요해서 조금씩 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71. 주가 말하면, 믿고 사랑하며 기뻐하면서 따라라! 그러면 ‘왜’ 그러한지 문제가 풀린다.
72.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했다. 베드로는 “당신이 누구인데 따라야 합니까?” 묻지 않고,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답을 주면 안 된다. 알고 따르면,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순리로 되지도 않는다.

73. 선생은 누구에게든지 “나를 따라라.” 한다. 그때 “당신이 누구인데 따라야 합니까? 내 생계를 책임질 자입니까?” 하지 않고 따른 자들이 있다. 다만 그 말에 희망을 갖고 좋아하며 따랐다.

74. 어떤 사람이 방귀가 나오니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의사는 방귀가 나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그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고 “뭐가 좋단 말입니까?” 하며 더 기분 나빠했다. 의사는 그에 대한 답을 안 주었다. 그리고 의사는 “방귀가 나오는 것이 싫으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 주었다. 그 사람은 그 말대로 했고, 그랬더니 건강이 안 좋아졌다. 의사에게 기분 나쁘게 대답하니, 의사는 무지의 답을 준 것이다.

75. 한 남자가 있는데, 애인이 옷을 사 달라고 했다. 그래서 같이 쇼핑을 갔다. 여자는 어떤 옷을 고르고 좋아서 이것을 사 달라고 했다. 그런데 남자가 자꾸 눈을 깜빡 거리면서 그냥 가자고 했다. 여자는 자꾸 “왜 그냥 가?” 했다. 옷 가게 주인도 “좋은 옷 한 벌이 남았으니 빨리 사세요.” 했다. 여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안달이 나서 사려고 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눈치를 주느라고 눈을 깜빡 거리다가 눈이 굳어서 토끼 눈이 되어 여자를 쳐다봤다. 여자는 꼬치꼬치 자꾸 따지면서 “옷 사 준다고 해서 왔잖아.” 했다. 남자는 그 옷 가게에서 그냥 나와 버렸다. 여자는 뻘뻘해서 “내 돈을 털어서 살 거야.” 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을 사겠다고 기웃거리면서, “안 살 거면 내가 살게요.” 했다. 결국 여자는 화가 나서 “그냥 가!” 하고 나왔다. 그리고 남자에게 “그 옷이 비싸서 안 사 준 거야?” 하고 물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옷 가게로 갔다. 그 옷 가게에 가니, 똑같은 옷이 있었다. 여자는 쳐다보면서 “아까 그 옷이네. 그래도 저 옷은 안 사 줄 거잖아.” 하고, 마음을 돌리고 발길을 돌렸다. 남자는 “이 옷 입어 봐.” 했다. 여자는 “아까 싫어하면서 안 사 준 옷인데, 왜 입어 봐?” 했다. 남자가 계속 권하여 여자는 그 옷을 입어 봤다. 그리고 좋아했다. 남자는 그 옷을 사 주었다. 그 후에 여자는 그 옷을 입고 동창회에 갔다. 그런데 여자 동창도 자기와 같은 옷을 입고 왔다. “너는 이 옷 어디서 샀어?” 하니, 동창은 어떤 쇼핑 몰에서 샀다고 했다. 알고 보니, 자기가 처음에 간 옷 가게에서 사려던 옷이었다. 옆의 동창들이 “너희는 어쩜 서로 의논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 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옷을 10만 원에 샀는데, 그 동창은 100만 원을 주고 샀다고 했다. 동창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옷을 감정하는 자라서 알아보니, 10만 원을 주고 산 옷이 진짜였고, 100만 원을 주고 산 옷이 모조품이었다.

감정사잖아.” 했다. 성자와 주는 이 남자와 같은 자다. 성자는 그 몸을 가지고 행하신다.

76. 성자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면 만 가지, 억 가지를 깨달아라!

77. 성자와 주의 말에 따지면서 따르는 자는 뛰면서 와도 성자와 주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걸으며 따르는 자들을 못 따라온다. 따지며 따르는 자는 돌아서 오는 길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78. 주의 말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는 걸어와도 앞질러서 따라온다.

79. 잔칫집의 주인이 사람들을 청했다. 그러나 잔치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청했다. 그 중에 왜 부르냐며 따진 자가 따진 후에 잔칫집에 와보니, 먼저 와서 먹고 있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먼저 왔나?” 했다. 그랬더니 “주인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왜 청했냐고 따지지 않고 와 보니 잔치를 하고 있네.” 했다. “나는 초청 받고는 주인에게 물어보고 따진 후에 알고 왔는데...” 했다. 따지고 물은 자는 혼자 먹고, 따지지 않고 온 자들은 주인과 같이 앉아서 먹고 즐겼다. 주인이 말하기를 “오늘의 잔치는 아들 결혼식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갔다가 벼슬을 하고 와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며, 무슨 벼슬을 했는지 가르쳐 주었다. “제가 왕위에 올라 이제는 사람들을 가까이 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고 가는 것입니다.” 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80. 잔칫집의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통째로 다 흔들리듯,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면 만사가 흔들린다.

<2013년 6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정신이 펜이다.

2. 육신은 기구다.

3. ‘정신이 펜’이라는 말은... 정신으로 쓴다는 말이다.
4. ‘펜’ 없으면 못 쓰듯이, ‘정신’이 없으면 못 쓴다는 말이다.
5. 정신일도가 안 되면, 마치 젓가락 두 짝이 하나 되지 않은 것과 같아서 온전한 생각도 못하고, 온전한 일도 못 한다.
6. ‘정신’은 마치 몸의 힘과 같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데 힘을 일체시키지 않으면 못 들듯이,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제대로 못 한다.
7. ‘정신일도 한 것’이란, 마치 눈으로 여러 사람을 보다가 오직 자기 눈에 들어 온 한 사람만 쳐다보듯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도 한 가지에만 집중했을 때 ‘정신일도 됐다. 정신 집중됐다.’ 한다.
8. 정신이 집중되면 다른 생각이 없고, 생각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다른 어떤 말도 안 들린다.
9. 정신이 집중된 단계에서 영적 세계도 들어간다.
10. 성자는 영이시니, 정신이 집중돼야 통한다.
11. 정신을 모을 때는 일하는 시간이고, 정신을 모으지 않을 때는 쉬는 시간이다.
12. 손가락도 모두 모아야 글씨를 쓰듯이, 정신을 모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
13. 무엇을 집을 때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듯이, 정신도 호흡하듯 그와 같이 해야 된다.
14. 정신도 두 가지로 작용해야 된다. 평소 때는 흩어 놓고 여러 가지를 보게 한다. 그러다가 할 일을 할 때는, 그 일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15. 가령 평소에는 과일나무 전체를 보다가 과일을 따먹을 때는 나무에 올라가서 과일 한 가지만 보고 따먹듯이 하는 것이다.
16. 동물들이 사냥하기 전에는 전체를 본다. 그러다가 사냥할 동물이 있으면, 그때는 전체를 안 보고 하나만 보고 사냥한다. 그래야 잡는다. 이와 같이 정신을 쓰는 것이다.
17. 육신 세계에서 육으로는 정신이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는 정신이 보인다. 영 자체가 정신이 되어서 행한다.
18. 영의 세계에서는 혼체가 정신이 되어서 행하고, 영체가 정신이 되어서 행한다. 고로 확실하다.
19. 사람의 육이 죽으면 마음·정신·생각과 혼체가 다 영체에게 흡수되어 간다는 설명이 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뇌의 작용이 기계 멈추듯 멈춰서 끝나면, 뇌에서 정신의 작용을 하기에 뇌의 작용이 끝나는 동시에 마음·정신·생각이 끝난다는 설명도 있다. 설명하기에 달려 있다.
20.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하셨다.
21. 가령 “영이 먼저다.”, “아니다. 육이 먼저다.” 하며 서로 논한다. 둘의 말이 다 맞다. 영적으로 보면 영이 먼저이고, 육적으로 보면 육이 먼저다. 설명법을 알아야 된다.

22.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누가 더 귀하냐?” 하면, 여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귀하다.” 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귀하다.” 할 것이다. 어느 편에서 보느냐가 문제이고, 설명하기에 달렸다. 창조주는 남자와 여자 모두 귀하게 창조하셨다.

23. 영계도 육계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24. 기계를 볼 때도 ‘암 나사가 중하냐. 슷 나사가 중하냐.’ 하면, 모두 자기편이 귀하다고 한다.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25. 똑같이 귀한 것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둘 중에 확실히 더 귀한 것은 분석하고 판단하여 확인한 후에 해야 한다.

26. 존재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이론’과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2013년 6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27. 산짐승에게 쫓기는 자는 정신을 집중하여 ‘도망가고’, 산짐승을 보고 잡으려 쫓아가는 자는 정신을 집중하여 ‘쫓아간다.’

28. 술이나, 마약이나,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들은 뭉게구름 같은 마음을 안개처럼 흩트려 놓는다.

29. 세상을 보면, 바람 부는 날 휴먼지를 흔들어 놓듯이 정신을 흔들어 놓는다.

30.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자를 생각해야 정신이 맑은 하늘의 한 덩이 구름같이 집중하게 된다.

31. 정신을 집중해서 하면 뛰어가는 것같이 초속으로 행하지만, 정신을 풀고 행하면 걸어가는 것같이 저속으로 행해진다.

32. 새벽에 성자가 한 번 깨웠을 때 안 일어나는 것은 마치 축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한 골을 먹은 격이고, 두 번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것은 상대에게 두 골을 먹은 격이다.

33. 성자가 처음에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안 하면 축구하는 자가 상대에게 한 골을 먹은 격이고, 첫 번째에 즉시 하면 자기가 먼저 골을 넣은 것 같아서 승리하면서 하게 된다.

34. 시간의 승리다.

35. ‘시간 승리’는 ‘삶의 승리’다.

36. 적은 시간으로 무엇을 하는 자는 작은 일은 하지만 큰일은 못 한다.

37. 축구는 큰 공으로 한다. 작은 공으로 축구하는 것은 어린이가 공놀이 하는 격이다. 적은 시간으로 성자의 일을 하는 자도 그러하다.

38. 시간이 늦을수록 그 시간은 깨지고 흩어진다.

39. 시간은 정신으로 잡는 것이다. 몸도 정신으로 잡고 다스려야 된다.

40. 어느 때는 육체가 피곤하지 않은데도 피곤하다. 이는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다.

41. '신경'이 느끼는 것이지 '살'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살'이 있어도 '신경'이 죽으면 못 느낀다.
42. 정신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몸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정신과 신경은 같다.
43. '정신'이다. 정신을 가지고 네 육을 보아라. 네 육체가 게으르면, 네 정신이 게으른 것이다.
44. 정신을 재촉하고 다스려라.
45. 몸을 아무리 닦아 놓았어도 정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
46. 정신이 이상 된 자는 몸이 아무리 멋있어도 무가치하다.
47. 정신을 버린 자는 마치 차의 엔진이 고장 난 것과 같아서 그 몸이 녹이 슬고 만다.
48. 정신을 잡고 행하되, 성자와 주의 정신으로 해야 육신이 빛난다. 자기 정신은 인간의 정신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49. 젊었을 때는 '몸의 즐거움'이고, 나이 먹을수록 '눈의 즐거움'이다.
50. 젊었을 때는 세포가 살아서 몸이 느끼면서 즐거워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세포가 죽으니 만져도 먹어도 잘 못 느낀다. 고로 눈으로 보면서 즐거워한다.
51. 성자와 주의 정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면, 항상 젊은이같이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된다.

<2013년 6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찾으면서, 이 고통 중에서 어떻게 해 주신다면 10배, 100배 하늘이 원하는 것을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하늘의 보화가 샘같이 솟아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원자를 땅의 사람으로 보냈어도 써먹어야 된다. 구원자를 써먹어라. 이 말이 무엇이나? 그와 대화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간구하라는 말이다. 구원자는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사명을 한다. 그는 성자의 대행자다. 고로 성자가 그 몸을 쓰고 행한다. 성자는 상전하지의 유일신이신 삼위일체 중의 한 분이시다.
3. 구원자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권세자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신다. 성자는 그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자기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4.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과 성자가 세상에 세운 구원자와 함께 하신다.
5.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 준 자와 항상 일체다.
6. <휴거>되려면, 계속 차원을 높이며 살아야 된다. 육이 세상에서 살 동안 삼위일체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계속 만들기다. 월명동을 계속 만드니 빛이 나듯이,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혼과 영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만들수록 빛이 난다.
7. 100평짜리 자기 별장을 완성했으면, 그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다 200평짜리 별장을 짓고 완성하고, 그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다 300평짜리 별장을 짓고 완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 육과 혼과 영도 쉬지 말고 계속 만드는 것이다. 자기 영을 휴거의 300선까지 만들고, 또 계속 만들어서 300선을 넘은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더욱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더 완전하고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8. 휴거의 100선을 넘어서 휴거의 영이 된 자가 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만들기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계속 성장하여 10대, 20대, 30대까지 커서 사랑을 이루며 살듯이,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면서 자기 혼과 영을 키워야 된다. “이제 나는 휴거됐으니 됐다.” 하지 말라는 것이다. 휴거되는 것만 목적하지 말고, 더 빛나는 영으로 만들어서 300선을 넘기까지 만들기다. 그리고 천국의 자기 집과 정원을 더 큰 것으로 만들기다. 천국의 집은 자기 영이 영원히 살 집이다. 한 채, 일곱 채, 열 채씩 가져라. 그리고 정원도 100평, 1000평, 10000평,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 세상의 한 나라 크기만큼씩 가져라. 천국의 자기 영의 정원이 세상의 한 나라 크기라 하더라도 큰 것이 아니다. 영은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도 순간이면 간다. 그러니 날마다 조강하듯이 한참 뛰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 월명동을 만들 때도 처음에는 “마당만 하면 족하다.” 했다. 사용해 보니 좁았다. 그래서 지금은 4km 멀리까지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도 사용하는 인원수가 많아서 한 사람당 몇 평씩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월명동도 한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은 방만 하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몇 명 전도하고 한숨 쉬느냐. 선생은 3만 명 전도하고 그제야 허리를 폈다. 너희가 제자나, 신부나, 남남이나, 머슴이나, 형제나. 일체라면, 그와 같이 행하기다.

9. 천국에 가서 누리려면 힘들어서 천국에 가다가 쓰러진다. 땅에서 희망의 천국을 누리라. 천국은 자기가 만든 만큼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이 느끼고 체휼하고 누리고 받으면서 산다. 영이 받을 것은 육이 죽은 후에 영이 받는다. 영의 것은 영에게, 혼의 것은 혼에게, 육의 것은 육에게 준다. 그러니 땅에서 누릴 것은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10. 행한 대로 받는다. 휴거되지 못해도 구원받으면 지옥에는 안 간다. 하늘 선 편에 가서 거기서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휴거 역사에 살면서 휴거돼야 하지 않겠느냐.)

11. 자기가 휴거됐다는 것은 자기가 안다. 자기 행위로 자기를 확인한다.

12. 결혼한 자들은 ‘육’으로는 ‘내 남편, 내 아내’한다. 그러나 ‘영’은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영원히 살게 된다. 고로 누구든지 세상에서 살면서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살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육은 죽으면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다. 이는 육계에서 육끼리 맺은 인연이다. 영은 육계와는 다른 체계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고로 육의 삶을 살면서,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13. 영 휴거의 때가 되었으니, 마음먹고 결사적으로 행하면 거의 휴거된다. 그러나 열 가지는 해야 된다. 자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니, 쉽다. 하나님과 성자가 인정하도록 본체를 제대로 알고, 믿고, 그와 일체 되어 살기다. / 본체를 알고 자기 죄를 100% 회개하기다. 곧 전능하신 성자께 그의 육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조건을 세우고 올라오기다. / 특히 이성 범죄에 관한 것을 100% 고하고 회개하여 조건을 세우고 올라와야 된다. / 시대 말씀을 100% 믿고 행하기다. / 성자와 본체와 일체 된 사랑의 삶을 살기다. / 삼위의 창조 목적을 알고 행하기다. 이것을 행하기는 쉽다. 휴거되면 자기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할 일을 조금 하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냐.

14. <휴거>는 반드시 ‘차원’을 따지고 계산하고, 알고 깨닫고서 이뤄야 된다.

15. <천국>도 ‘차원의 세계’이며, <지상>도 ‘차원의 세계’다. (각자 사는 차원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16. 온 바다의 새우들 중에서 최고로 큰 새우와, 고래들 중에서 최고로 큰 고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휴거되어 얻는 차원과, 성장하고 큰 자가 휴거되어 얻는 차원이 다르다.

17. 열 살이 안 된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의 보람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고, 열 살이 넘은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해 주며 사랑의 보람을 느끼는 차원이 다르고, 20대, 30대까지 육신이 발육되고 정신 연령이 성장한 남녀가 사랑하고 사랑해 주며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차원이 다르다. / <휴거>도 자기가 성장하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대로 차원을 높여서 살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그에 맞게 천국을 얻고 살게 된다. 차원 높은 자가 많이 얻고, 많이 느끼고, 많은 보람과 기쁨을 누린다. 차원이 낮은 자는 못 느낀다.

18. 사랑으로만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휴거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을 온전히 했으면 사랑 휴거에서 100점이다. 거기

에서 각종 과목대로 갖추면,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고, 그 차원에 해당되는 천국을 얻게 된다.

19. 주와 같이 일체 되어 행하고 그 급으로 살면, 그 ‘육’이 땅에서도 주와 같은 주관권 세계에서 교통하며 살고, 그 ‘영’이 천국에서도 같은 차원 주관권 세계에서 살게 된다. 나머지 영들은 두 번째 주관권, 세 번째 주관권... 등 나선형으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산다. 또 나무 나이트같이 옆으로 나선형으로 차원마다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다. 핵심 주관권과 그 외의 주관권의 빛과 환경의 차이는 금 은 동 철같이 나뉘어 있다.

20. 시대 말씀을 배웠어도 깨달아야 전심을 다해 외치게 되고, 그런 자가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21. 시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100번 외치기보다, 깨닫고 한 번을 제대로 외쳐라.

22. 날마다 별미 요리를 해서 먹고 살듯이 ‘말씀 듣고 행하기, 기도하기, 찬양하기, 관리하기, 말씀 외치기’ 등 신앙의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자기 생활을 새롭게 하여라.

<2013년 6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시대의 때를 계산하지 못하고 때가 지난 후에 행하면, 행해도 헛수고다.

2. 때 지나고 차를 기다린다면 헛수고다. 이와 같이 때가 지났는데 수고하면 헛수고다. 고로 때를 알고 행하여라.

3.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수고해야 된다.

4.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먼저 그릇이 깨졌는지 보아라.

5. 회개하지 않고 수고하면, 깨진 그릇에 물 붓기다.

6. 회개하지 않고 수고하는 자는 배에 밧줄을 매 놓고 노를 젓는 자와 같다.

7. 자기 할 일을 두고 그냥 놔두면 그냥 있다. 이와 같이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그냥 있다. ‘회개’라는 일로 ‘죄’를 없애야 된다.

8. 죄는 사탄이 주관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과 성자도 문제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멀리하신다. 고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자와 멀어진다. 죄 때문에 하늘의 사역을 안 주신다. 회개하고, 조건 세우고, 인정받아야 된다.

9.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어도 법에 걸릴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한다. 법에 걸려야 묶여서 감옥에 간다. 그 전에는 문제없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산다. /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날부터 다 알고 대하신다. 고로 그는 하나님의 법에 걸린 자가 되어 정한 날부터 그 짓값을 받게 된다. 자기 죄로 인해 자기 혼과 영이 사망에 묶여 있고, 자기 육도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를 받는다.

10.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주께 숨기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계속 사명을 한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도 아시고 성자도 아시고 이미 그 영과 혼과 육을 행위대로 대해 주신다. 고로 죄로 인해 자기 영이 더 사망의 길로 가져서 필경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나가게 된다.

11. 죄를 지었으면, ‘회개’만이 살 길이다!

12. 죄를 짓고도 오랫동안 숨기고 늦게 회개하면, 그만큼 조건을 세워서 올라오기가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으니, 섭리사를 나가게 된다.

13. 자기가 계속 이성 죄를 지으면서 주께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하던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았다. 그 죄로 인해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고, 스스로 섭리사를 나갔다. 나가서 술, 담배, 이성 향락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됐는지 보니, 사망이 삼켜 버렸고, 하나님과 성자는 심판 날을 정해 놓으셨다. 또한 그 영혼이 사탄 마귀 들로부터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그 육의 마음이 괴로운 지옥이 되었고, 그 육신까지 형벌을 받고 있었다.

14. 죄를 회개하려면 죄를 지은 대로, 죄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여라. 호리만큼 작은 것이라도 다 회개해야 된다. 암세포는 모래만 한 것도 떼어 내듯이, 죄는 호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하여 떼 내야 된다.

<2013년 6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겪어 보면 이해를 한다.

2. 구원자만이 구원자 사상이 있다.

3. 구원자와 구원받을 자는 위치가 다르다. 구원자는 위에 있고, 구원받을 자들은 밑에 있다. 고로 구원자는 구원받을 자들을 위로 잡아당겨 주고, 구원받을 자들은 밑에서 올라와야 된다.

4. 구원자가 아니면, 작으나 크나 올라오는 길을 혼자서는 못 올라온다. 구원자가 사망의 함정에서 잡아당겨 주고 이끌어 줘야 올라온다.

5.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려는 구원자가 되어라. 그러려면 구원자의 마음을 받고 배워야 된다.

6. 누구나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구원하게 된다.

7. '자기를 구원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하지 못한다.

8. '자기를 구원하려는 마음'을 절실히 가진 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구원자가 된다. 그럴지라도 역시 구원하러 온 자를 만나야 그를 따라 구원길을 가게 된다.

9. 구원받았으면,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하여 그 목적을 이뤄야 된다.

10. 하나님의 뜻은 곧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천지 만물과 자기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뤄 드려야 된다.

11. 첫째, 자신이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구원자를 만나면, 그의 말을 듣고 구원받기 위한 책임을 하는 것이다.

12. 만사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만들어야 존재물이 형성되어 쓸 수 있듯이, 구원도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를 만들고 완성해야 된다. 마치 집을 짓고 완성한 후에 집을 쓰듯이, 자기를 만들고 완성해야 구원에 해당되는 인생으로 쓰게 된다.

13. 휴거된 육과 영으로 만들어 놔야 자기를 쓰게 된다.

14. 육을 휴거시킨 자는 땅에서 자기 육을 휴거된 몸으로 쓰면서 살고, 영을 휴거시킨 자는 천국에서 자기 영을 신부로 영원히 쓰게 된다.

15. 자기 만들기다! '자기 육'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 되어 하늘을 위해 쓰이게 된다.

16. 자기 영은 자기 육과 함께 만드는 것이다.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차지하

고, 천국을 차지하여 천국이 자기 집이 된다.

17. 낙심하지 말고 자기를 만들어라.

18. 자기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 ‘자기가 하는 주권’이다.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하니,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축복인지 아느냐. 육의 것은 자기가 하면서 만들고, 영의 것은 성자와 구원자와 같이 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19. 사람에게에는 ‘영’과 ‘육’이 있다. 고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두 편으로 모두 만들어야 된다.

20. 볼펜을 만들어야 글을 쓰고 종이를 만들어야 글을 쓰고 사용한다. 만들면 계속 쓰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도 만들어야 된다. 자기를 만든 자와 못 만든 자의 차이는 유(有)와 무(無)의 차이이며, 하늘과 땅의 차이이며, 우주 온 천지 넓이와 아무것도 없는 곳의 차이이다.

21. 자기를 하늘 신부로 만들어라. 그래야 매일 신부로서 사랑받고, 성자에게 쓰임 받는다.

22.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23. 땅에 묻혀서 안 보이던 것도 찾아내면, 그 존재 가치대로 쓰인다.

24. ‘만들기’와 ‘찾아내기’다.

25. 자기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라.

26. 만사의 모든 일이 백지장 차이이다.

27. 성공과 실패는 백지장 차이에서 일어난다.

28. 어제는 자기가 100% 좋아서 한 일도 오늘은 100% 싫어하며 “이제는 이 일이 평생 싫다.” 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러하다.

29. 모든 것은 불에 타 재가 되어 날아가도 ‘사랑’만이 남아 있다.

<2013년 6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면, 10년을 해도 변화가 없고 그 자리다.

2. 마음을 먹고 ‘목적’을 달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날마다 차원을 높이고 뭔가가 된다.

3. ‘분체’의 인봉을 떼지 못하고, ‘성자’의 인봉을 떼지 못하면 육적인 자가 되고, 구시대 운명을 면치 못한다.

4. 알고 감사하면 더 기쁘다.

5. 알고 사랑하면 더 기쁘다.

6. 알고 믿고 대해야 좋다.

7. 알고 대하여라.

8. 알려고 하면서 대하여라.
9.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자는 주품을 벗어난 자다.
10. 여자는 잘해 줄 때만 존재한다.
11.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셨어도 여자는 만족하지 못하여 타락의 길로 갔다. 그 여자는 '하와'다.
12. 여자는 자기 몸으로 남자를 쾀다.
13. 남자가 여자의 몸보다 자기 몸을 더 귀하게 보고 살면, 여자가 그 몸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쾀도 안 넘어간다.
14. 여자는 사랑에 약하다. 몸 자체가 그러하고, 체질 자체가 그러하다. 그렇지 않은 여자는 성령님의 마음과 정신을 받은 자다.
15. 정들면 꼰뚜기도 문어로 보인다. 여자도 그러하다.
16. 핵을 상실하지 않을 때는 문어가 되고, 핵을 상실하면 꼰뚜기가 된다. 복직하면 오징어가 될 수 있다.
17. 과일도, 음식도, 집도, 모든 것들도 썩으면 버리는 것이다. '생명'도 썩으면 버리는 것이다.
18. 썩은 것인데 버리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
19. 전도된 생명에게 갖은 정성을 다 들였는데 그 생명이 나가 버렸다. 이에 실망하고 전도를 못 하면, 생명 농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전에 수고한 것은 실험용이다.' 생각하고, 더 귀한 생명을 찾아라. 그래야 더 귀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20. 자기가 생명을 데리고 있지 말고,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에게 주어라.
21. 자기 고집과 사고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들 중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2. 고집 부리던 자의 영은 지옥에 가서도 고집을 부린다. 그러다가 지옥 사자들이 고집대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때리고, 오만 가지로 다양하게 고통을 주면서 웃어댄다.
23. 겸손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고 교만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100% 지옥 선고를 받는다.

<2013년 6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일을 할 때는 잔칫날에 돼지와 닭을 잡듯이 해야 된다. 돼지와 닭을 안 잡고는 잔치를 할 수 없듯이, 일을 안 하고서는 삶의 행복 잔치를 할 수 없다.
2. 일이 있으면, 밥을 먹듯이 싹싹 해야 된다.
3. '일'이 자기가 먹고 사는 음식이다.
4. 자기 할 일이 있는 자는 행복한 자다.
5. 할 일이 돈이다. 양식이다. 옷이다. 명예다. 사랑이다.

6. 일이 많은 자는 자기 앞에 사랑할 자가 쌓인 자와 같고, 창고에 곡식이 쌓인 자와 같다.
7. 실컷 일할 것이 없는 자는 자기 잠재능력을 쓸 곳이 없는 자로서 불행한 자다.
8. 일 중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최고 위대하고, 보람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다.
9. 하나님이 시키신 그 좋은 일을 혼자서 하지 말고,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여라. 곧 성자와 하여라.
10. 일거리가 없는 날은 거지가 구걸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온 것과 같이 실망이다. 굶주리는데 잠이 오겠느냐.
11. 영원한 일을 하여라. 영원한 일은 자기가 하는 대로 공적이 되어 하늘나라에 금과 각종 보화로 만든 자기 집과 정원이 건축되어 간다.
12. 일이 없으면 부도난다. 신앙의 일도 그러하다.
13. 일이 좋아서 일에 미쳐서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고 했더니, 쓰러졌다.
14. 꿈에서도 내 혼체로 일했다. 혼체는 혼의 세계에 다니면서 그리도 열심히 일했다. 10년, 5년 전에 육으로 약속한 곳에 다니면서, 잔치상을 받으면서 섭리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며, 섭리인들을 만나고 다녔다. 어떤 자에게 “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전도는 몇 명 했지?” 했다. 그랬더니 그는 “저는 10000명을 전도했는데, 몇 명 안 남았어요.” 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지. 전도는 하는데, ‘관리’라는 일을 안 하니까 그렇다.” 하고 말해 주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보니, 모두들 자기 일에만 빠져 있었다. 거기 모인 자들은 모두 섭리인이었다. 육계에서도 분체를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신앙생활만 하니, 그 혼체도 혼계에서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그런 상태에서는 휴거되지 못하는데...’ 했다. 사랑의 일을 못 하는 자들이었다.
15.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하여라.
16. 육이 그 정도해서는 그 혼도 사랑의 차원에서 만나지 못한다. 입 사랑 다르고, 혼의 사랑이 다르다.
17. 육계에서 이루어져야 혼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이루어진다.
18. 어떤 일이든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안 한 것은 그대로 있다.
19. ‘회개’도 육계에서 제대로 해야 영계에서도 깨끗하다.
20. 세상에서는 한 가지만 잘해도 그 일에 성공하고 그 일을 정복한다. 그러나 천국에 가려면, 전체를 잘하고 승리해야 된다. 못 한 만큼 천국의 밑 단계로 간다.
21. 전체를 승리한 자만 천국에 간다.
22. 사람이 이성을 생각하고 이성의 행위를 하며, 각종 불의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자기를 구원하신 성자가 시킨 일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시간에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가지고 성자가 시키신 일을 하면, 자기 마음도 생각도 몸도 불의한 일을 못 하게 된다. 오직 성자를 생각하면서 해야 유혹도, 시험도, 핏도 이긴다.
23. 가령 방에 있으면, 자기 몸을 가지고 잠을 자거나 TV를 본다. 만일 그 시간에 성자가 명하신 산에 가서 산을 오르면, 그 몸을 가지고 잠을 자거나 TV를 보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 정신과 행위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 이성의

생각과 행위를 안 하게 되고, 세상 사랑도 안 하게 된다.

24. 어떤 사람은 “섭리사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한다. 세상에서 할 짓 다 하고 천국에 가겠느냐. 천국에 갈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계를 잡으려 바다에 가더라도 그 시간에 그 몸을 가지고 100% 다른 일을 안 하고, 오직 계만 잡아야 잡는다. 하물며 세상의 이것저것 다 하고 천국에 가려 하느냐. 너의 잘못된 인식과 사고를 버려라.

25. ‘생각’도 ‘몸’도 불의한 데 시간을 안 주면, 불의한 일을 못 한다. 시간을 자기 영과 육을 살리는 데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축복 받는 데 써라.

26. 생각을 제대로 하기다. 그리고 행하기다. 인생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27.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성자를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이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 영계를 보아라. 영들은 자기 육이 행한 대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 성자를 믿는 자들의 영은 빛 세계에서 살아가고, 성자를 안 믿는 자들의 영은 흑암 세계에서 살아간다.

28. 육계로 보면, 다 같은 무리 같다. 영계에서 보면, 영들이 천층만층으로 구분되어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차원이 나뉘어져 살아간다.

29. 하급 영계에 가면, 그곳에 사는 영들은 원시인 같다. 고급 영계에 가야 예쁘고 멋있는 영들이 눈에 띈다.

30. 하급 영계일수록 영들이 시체같이 생겼고, 못 생겼고, 불구자이고, 빛도 없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다니고, 그 모습이 삭막하다.

31. 지옥 쪽으로 가면, 예쁘고 멋있는 영들이 한 명도 없다.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되어 있고, 3년씩 머리도 안 깎아서 지저분하고, 얼굴이 썩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옷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다. 또한 그들은 침침한 곳에서 살고 있고, 집은 풀과 꺼치(거적)를 덮고 사는 원시인들 집과 같다.

32. 혼계에서 보면 모두 다 보인다.

33.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면, 육계에서 번질번질하게 잘 사는 사람들도, ‘여봐라.’ 하며 자기 권위를 나타내며 사는 자들도 영계에서 그 영을 보면, 그 영이 육의 행위를 다 가지고 있기에 상상도 못 하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 그 영이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옷도 다 떨어져 있고, 집도 형편없다. 육계만보고 판단하지 말고, 영계로 보아라.

<2013년 6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배경과 풍경은 ‘눈’에는 좋고 맞으나, ‘마음’에는 안 좋고 안 맞는다.

2. 어떤 것은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나, 막상 먹어 보면 맛이 별로여서 ‘마음’에는 별로다.

3. 사람도 ‘눈’에는 아름답고 좋으나, 막상 겪어 보면 마음도 행실도 별로인 자가 있다.

4. 구경거리 다르고, 먹거리 다르다. 인생도 그러하다.

5. 관광용 다르고, 자기가 살 곳이 다르다.

6.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서 눈에는 보기 좋으나, 먹지는 못한다.

7. 살려면 물을 먹어야 되니, 웅달샘이 눈에는 별로라도 그것이 낫다.
8. <눈의 풍경>과 <실제 마음의 풍경>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9. 눈에는 진수성찬 인생인데, 마음에는 겨울철 찬밥 인생이다.
10.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는데, 섭리사에 많지 않다.
11. 좋아서 교통하는 자들은 금같이 적고,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교통하는 자들이 많다.
12. 자기 볼 일을 보듯, 화장실 가듯, 성자도 주도 자기가 아쉬우니 찾고 통하려 한다. 이들은 신부급 차원에 있는 자들이 못 된다.
13. 세상에는 금이 많지 않고 철이 많다. 섭리사에는 나이 든 자나 젊은 자나 철없는 자들이 많다.
14. 자기 볼 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가는 자는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하는 자요, 청소를 해 주러 가는 자는 자기가 좋아서 행한 고로 공력을 세운 자다.
15. 인생 속을 보면 별로, 별로, 별로다.
16. 자기 책임을 하기 전에 성자 앞에, 주 앞에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자는 별을 단 자다.

<2013년 6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목적을 찾으려 산다.
2. 목적을 찾으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희망에 차서 수고하며 살아간다.
3. 목적을 못 이루면 허무로 끝나고 실망하게 된다.
4. 목적을 이루면 그 목적과 함께 기뻐하며 육적 천국, 마음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45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들여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사람의 '영체'를 창조한 목적은, 그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이 하늘나라 형제로 변화되어 완성된 영체가 되어서, 삼위일체의 영원한 대상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인간이 이 목적을 못 이루면,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7. 인간이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이뤄 주면, 땅에서도 '육'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하늘 천국에서도 '영'이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
8.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주는 자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주지 않는 자는 자기 목적을 이루더라도 잠시뿐인 육적인 것으로서 허무하고 허망하

게 끝나게 하신다.

10.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자기 목적만을 이루며 살고 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고 살아도 허무하고 허탈하고 곤고하다. 그 영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고 있다.

11.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위해 살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주는 자는 자기 목적도 절대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12. 자기 목적 먼저 이루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깨지게 하면, 하나님 목적 속에 있는 자기 목적을 자기가 깨부수게 된다.

13.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이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절대 사랑과 영 휴거’다. → ‘육’이 땅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땅의 구원자와 함께 사는 삶을 삶으로 자기 ‘영’을 천국으로 휴거시키는 것이다.

14.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 창조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라.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무한하게 변화시켜서 ‘절대 사랑과 영 휴거’로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라.

15. 사람은 만물기에 달려 있다. 자기 육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혼도, 영도 한없이 변화시키며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찬란하게 만들어라.

16. 자기 영을 찬란하게 만들어 나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

17. 집과 환경은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 줄 수가 없다. 그러나 자기를 만물기만 하면, 그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빛을 발하며 보여 줄 수 있다.

18. 천국에서도 영계에서도 ‘자기 영체’를 빛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 준다.

19.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진 영’은 그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낸다.

20. 자기 육의 행실로 자기 혼과 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기다.

21. 아름답고 멋있는 의의 영으로 만들수록 더욱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22. 육은 타고난 대로 살아야 되지만, 혼과 영은 만물기에 따라서 무한하게 변화된다. 자기가 의를 행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구원자를 믿고 따르며, 성자를 사랑하면서 변화시키는 대로 달라진다. 만드는 대로 끝도 없이 아름답게 된다.

23. 모두 실력대로 1차원으로 영계에 들어가서 자기 혼과 영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다음에 2차원으로 영계에 높이 올라가서 자기 혼과 영을 보아라. 마음·정신·생각을 성자에게 집중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자기 ‘혼체’ 먼저 확인하여라. 그러면서 점점 더 높은 단계로 가서 ‘혼체’도 더 완전히 확인하고, 자기 ‘영체’도 확인하는 것이다.

24. 자기 영을 최고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고 찬란하게 만들어서 살기다.

25. 성자는 금방 변하는 ‘육’을 보고 택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안 변하는 ‘영’을 보고 택하신다.

26. 영은 자기 육의 행위로 인해 만들어지고 빛이 난다.

27. 영이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도 영계에서 ‘벼슬’이며 ‘권세’다.

28. ‘영’은 자기 욕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가 상상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의 몸과 얼굴과 마음으로 만든다.

29. 최고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든 영들은 하나님이 지구보다 더 귀한 생명의 작품으로 보고 늘 쳐다보면서, 천지와 지구와 인간의 욕과 영을 창조한 보람을 느끼고 좋아하신다. 그 영들이 천국으로 휴거될 때까지 기뻐하며 쳐다보신다. 그러다가 그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살게 하시며, 늘 그 영을 사랑해 주시고 살피신다.

30. 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대 말씀과 절대 삼위일체 사랑으로 만들어진 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31. 욕을 보고서는 모른다. 영을 보아라.

32. 영은 화장하고 꾸며서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 온전한 의와 선, 사랑, 믿음, 실천, 기도, 회개, 순종 등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행함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33. 아름답고 멋지고 예쁘게 만든 영은 그 가치가 엄청나다. 영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지구 덩어리보다 더 비싼 값이 나간다.

34. 영들도 천층만층으로 그 ‘아름다움’이 구분되어 있고, 그 아름다움에 따라서 ‘가치’가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는 만큼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영은 ‘미’와 ‘빛’과 ‘옷’이 <권세>이며 <명예>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왜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했는지 알아라. ‘영 창조’를 위해서다. 자기 욕을 가지고 자기 영을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러면 영의 미와 권세와 명예를 얻게 되고,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사랑받으며 산다. 영의 인물은 자기 욕의 행위대로 변화된다.

36. 자기 영을 만든 만큼 휴거되고, 자기 영을 만든 만큼 휴거 후에도 각자 차원대로 그에 해당되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욕은 삶의 소모품이다.

2. 욕은 욕계에서 다 쓰면 남는 것이 없다.

3. 욕 희생, 영의 삶이다. = 욕의 희생으로 영이 산다.

4. 잠은 좋고 나쁘다.

5. 잠은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나쁘다.

6. 자기도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나쁘다.

7. ‘인간 자체의 삶’은 잘하나, 못 하나 실패의 삶이다.

8. 인간이 창조주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욕 실패, 영 실패다.

9. 성자는 오셔서 전능자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한다. 성자가 땅의 구원자를 세워서 그 육을 통해서 행한다. 인간이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실패다.
10. 세상과 육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잠자는 자들과 같다.
11. 전능자와 성자와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잠을 깨서 사는 자들이다.
12. 태어나서 잠만 자다가 인생이 끝나면,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13.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과 육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꿈속에서, 잠 속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자들과 같아서 허무하다.
14. 먹고 입고 자고, 그것을 반복하며 산다. 고로 먹고 입고 자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15. 육은 옷과 같은 소모품이다. 고로 육만을 위해 살면 결국 남는 것이 없다.
16. 영을 살리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면, 육으로 끝난다. 그리고 영은 영원히 사망에서 산다.
17. 육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살면서 영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18. 육을 위해 살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희망이 없다. 육은 소모품과 같으니, 결국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19. 어떤 사람은 겨울철에 눈사람을 만들고, 눈으로 집을 짓고, 눈으로 각종 것들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았다. 다른 사람은 돌과 나무로 집을 짓고 조각품도 만들어 놓았다. 봄이 오니, 눈으로 집과 각종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녹아서 다 없어졌다. 이는 육을 위해 산 자의 삶이다. 돌과 나무로 집을 짓고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남아 있었다. 이는 영을 위해 산 자의 삶이다. 영을 위해 한 것만 남아 있다.
20. 육의 삶은 먹는 것같이 소모품과 같다. 먹은 것이 육에게 흡수되어 가도 육은 매일 세포가 죽어 간다.
21. 하루를 살더라도 육만 위해 살지 말아라.
22. 육을 가지고 영의 삶을 살아라. 영을 위해 살아라.
23. 육이 잠잘 때는 혼이 혼계에서 생활한다. 그러다가 육이 잠에서 깬 때쯤 육계로 나온다.
24. 혼체도 육의 삶으로 나와서 살기에 봐도 잘 모른다.
25. 혼계는 먹지 않아도 되는 세계로서 지상에 존재한다.
26. 낙원 영계는 혼계 위에 있고, 우주 중간에 있다. 신약권의 영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사는 세계로서 그곳을 거쳐 간다.
27. 천국은 우주 바깥에 있다.
28. 혼으로 혼계에도 가고, 낙원 영계도 간다. 천국에 가 보기도 한다.
29. 영은 혼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러나 자기 영이라도 자기가 잘 못 본다.
30. 혼을 통해서 영을 느끼고 알아라.

31. 혼은 육이 죽으면 영과 일체 되어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선영계, 혹은 낙원 영계, 혹은 천국으로 간다.
32. 천국은 휴거된 영들이 간다. 나머지 영들은 그다음 단계에서 살게 된다.
33. 영 휴거의 때가 되었으니, 자기가 휴거되겠다고 마음먹고 시대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결사적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영을 휴거시킨다.
34. 세상에서 집을 짓든지, 어떤 개발을 하여 무엇을 만들든지, 다 만들 때까지 몰두하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휴거'도 누구나 시대 말씀을 듣고 전문적으로 행하며 살면 이룬다.
35. 보통으로 하면 끝없는 시간이 간다.
36. 하고자 마음을 먹고 전심으로 몰두하고 하면 10배, 100배 하게 되어 할 수 있다.
37. 지금은 자기가 시대 말씀 듣고 행하고 구원자를 따라 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육도 영도 휴거되는 때다. 때가 와서 휴거 역사를 진행하니 전심으로 몰두하면, 육을 통해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38. 순간만 하지 말고 꾸준히 하기가다. 매일 행하기다. 매일 하면 성공한다. 자기 혼의 움직임으로 자기 영의 변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39. 육계의 것도 영계의 것도 무엇이든지 전심으로 계속해야 된다.
40. 잠언도 처음에 받을 때는 낮은 단계에서 받는다. 끝까지 하면 점점 차원이 올라가서 차원이 높은 단계에서 받는다.
41. 잠언도 쓰다가 말면, 한 테마를 다 못 받는다.
42. 자기 육이 행하는 대로 영이 변화된다.
43.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고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빨리 회개하고 다시 가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가진다.
44. 매일 100리를 가던 자가 가다가 포기하고 안 하면, 그동안 간 것까지 수고가 헛되게 된다.
45. 자기 영을 위해서 자기 육이 늘 투자해야 된다.

<2013년 6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46. 주가 맡긴 사명의 일만 하지 말고, 자기 영을 위해서 매일 실속 있게 살아라.
47. 일하는 것은 구원받고 감사해서 한다고 생각하여라.
48. 자기 육이 매일 자기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49. 자기 일에 신경 쓰는 것만큼 성자와 분체를 신경 쓰지 않으니, 영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겠느냐.
50.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사는데, 일만 하면 사랑이 형성되겠느냐. 일과 사랑은 다르다. 사랑하기에 일도 해 주는 것이다. 사랑하고 대화해야 사랑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일을 하되, 그 일을 하기보다 성자와 분체와 하나 되어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난다. 일을 하면, 물론 공적은 된다. 그러나 항상 성자와 분체와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야 영이 극적으로 변화된다.

51. 일만 빠져서 하고, 성자와 그 분체의 심정·정신·생각·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자의 영을 보니, 그 생각대로 욕적으로
가 버렸다.
52. 학교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늘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교통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자의 영을 보니, 영이
변화되어 완전 달랐다.
53. 목회를 하더라도, 전도를 하고 강의를 해도, 그 어떤 사명을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성자와 분체와 같이 살기 위
해 하는 것이다. 성자와 분체와 떨어져 있으면, 5년 동안 일을 해도 허무하고 곤고하다.
54. 성자 분체라도 분체의 책임으로 종일 일만 하니까 역시 욕적이었다. 일을 하는 만큼 성자와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
야 된다. 즉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성자와 사랑의 교통도 많이 일어나야 된다. 성자를 사랑함으로 일을 해야 된다. 왜
일하느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다. 사랑은 놔두고, 일 다 한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하면서, 일도 보고
성자도 보면서 행하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욕의 세계와 체계가 다르다. 영 체계다.
55. 끓이던 물도 계속 안 끓이면 바로 식어서 원위치로 돌아온다. 마음의 물도 열을 안 내면 바로 식는다.
56. 사랑의 마음도 뜨겁게 끓다가도 열을 안 내면 바로 식는다.
57. 꾸준히 행하여라. 꾸준히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야 죽지 않는 사랑이 된다.
58. 사랑도 매일 안 살피고 놔두면 바로 식는다. 화분의 꽃처럼 사랑을 그냥 놔두면 바로 마르고 시든다.
59. 밥 먹듯 성자 사랑이다. 옷 입듯 성자 사랑이다.
60. 사랑은 몸이든 정신이든 사랑할 때만 느낀다. 성자와의 사랑도 사랑할 때만 느낀다. 안 하면 못 느낀다. 생각을 안
하면 애인이 손으로 만져도 못 느끼듯, 생각을 안 하면 영이 와서 만지고 혼이 와서 사랑해도 못 느낀다. 생각하고 있
어야 혼과 영이 와서 사랑하면 느낀다. 그것이 혼계, 영계다.
61. 우리 욕신의 정신과 생각이 성자를 향해 깨어 있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고 있을 때, 성자와 그 분체와 교
통하면 느끼고 알게 된다.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성자와 그 분체가 와서 사랑해도 못 느낀다.
62. 혼과 영이 깨어 있는 자만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안다. 같이 한 목적지로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한 자만 목적지
에 왔다는 것을 안다. 과정 중에 있는 자는 아직 모른다. 휴거도 그와 같다. 휴거된 자만 안다.
63. 가령 월명동에서 대둔산까지 여러 길로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다 하자. 어떤 사람은 대둔산에 갔다고 하고, 어떤 사
람은 산을 오르고 있다고 한다. 자기 차원대로다. 자기가 행한 대로다.
- 이와 같이 휴거된 자도 있고,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도 있다. 자기 차원대로다. 자기 행한 대로다.
64. 재촉하여라. 해가 넘어가면 끝난다. 더 못 간다. 휴거는 ‘한 기간’을 두고서 한다.
65. 극적으로 행한 자는 자기 영이 속히 변화되어 휴거 주관권에 진입하여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멀리서 쳐
다보면서 가고 있다.

<2013년 6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66. ‘휴거’는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기다.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면 휴거된다. 목적지인 ‘휴거’는 성
자와 사랑 일체 되는 것이다.

67. 자기 영이 성자와 사랑으로 일체 되어, 성자가 하늘로 떠나가면 따라간다.

68. <휴거>는 마치 결혼식을 하듯이, ‘땅에서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69. 천사장이 나팔 불면, 순간 무엇을 해치우듯 정신없이 천국으로 올라가며 휴거되겠느냐. 권위 있게 천사장이 나팔 불면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데,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준비된 영들은 휴거된 위치와 차원으로 모여든다. <휴거>는 한 기간을 두고서 한다. 마치 여행 갈 때 충분히 차를 타는 시간을 주고 올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타면 떠나듯이, 휴거도 그런 과정의 기간이 있다. 육이 땅에서 휴거되는 것도 ‘한 기간’을 두고 했다. 순간 했느냐. 아기를 낳아서 다 길러서 결혼시키듯이, 육도 한 기간을 두고 땅에서 휴거를 이루면서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킨다. 육은 깨닫는 데 너무 느리고 둔하기에 <육 휴거 기간>을 주고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최대한 키우고 만들게 한다. 그리고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시면, 휴거의 모든 순서를 밟고 영들이 휴거된 위치와 차원에 따라서 하나둘씩 데리고 점점 천국으로 떠나간다. <성자의 1차 재림>은 성자가 땅의 합당한 자의 육신 쓰고 오셔서 그를 본체로 삼고 그를 통해 펼치는 <지상 육 휴거 기간>이다. 이때 성자는 본체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성자와 본체와 일체 되어 육이 땅에서 휴거되게 하고, 그 과정 중에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게 한다. 먼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재림하시는 <2차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때 휴거의 영으로 준비된 영들이 성자를 따라서 천국으로 오른다. 그런데 무지한 자는 어느 한 날 천사장이 나팔 불면 몇 시간 만에, 혹은 오전이나 오후나 새벽에 순간 휴거되는 것으로 안다. 예수님 때 무지한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당장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다. 천국이 당장 안 이루어지니,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먼저는 메시아가 와서 시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땅에서 육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육’은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육의 행위에 따라 ‘영’이 변화되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70.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듯이 ‘천국’이 순간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듯이 ‘휴거’가 이루어지는 줄 안다. 아기를 낳아서 다 키운 다음에 신부로 삼듯이, 휴거도 그와 같이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진다. 성자가 육신을 쓰고 <1차 재림>을 하여 그 본체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시대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육신을 땅에서 휴거시키면서, 그 육의 행위로 영을 변화시키게 한다. 그렇게 땅에서 <육적 휴거 역사>를 편다.그다음에 성자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면 <2차 재림>을 하여 ‘한 기간’을 두고 하나하나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서 마치 해가 서산으로 가듯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휴거가 이루어져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71. 사람들은 ‘휴거’를 총 쏘듯 ‘뽕’ 하는 식으로 알고 있다. ‘뽕’에는 과정이 있다. 과정이 있어야 만들어지고, 만들어져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게 된다. 지금 육도 영도 휴거되고 있다. 육 휴거와 영 휴거를 진행하고 있다.

72. 휴거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휴거에 대해서 알겠느냐.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행한 만큼 그 차원만큼만’ 아는 것이다.

73. 농사를 안 짓는 자들이 씨 뿌리는 때를 알겠느냐. 여행을 가다가 황금벌판이나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냐. 황금벌판이 한순간에 이루어졌겠느냐. 절기에 따라 수고하고 노력하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휴거도 이와 같다.

74. 영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그만큼 행해야 되는 일’이다.

75. 결혼하는 여자나 결혼을 앞두고 바쁘게 결혼 준비하는 것에 빠져 살지, 다른 자는 모른다.

76. 아는 자는 10대 때 알고 평생 살아가고, 모르는 자는 아는 자가 가르쳐 주지 않는 한 평생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

77. “성자 주님 정말이예요?” “내게 거짓이 어디 있어. 정말이지.”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나인지 알고도 확인하느냐. 내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말대로 기뻐하며 실천해 봐. 그러면 네 마음도 기쁘다. 내 말을 실천한 후에 뭐가 다른지 보아라. 나 성자다.”

<2013년 6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구원해 주면 구원자와 같이 산다고 해야지, 안 그러면 구원자가 구원해 주겠느냐. 구원받고서 구원자와 같이 살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고로 구원받고서 구원자와 같이 살지 않으려면, 구원자가 몸부림치며 구원해 주는 수고를 안 한다.
2.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고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고 구원자와 같이 살지 않는다면, 구원하지 않으신다. 혹시 구원해 줘도 자기 뜻대로 살면, 또 구원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3. 구원은 구원자와 같이 살아야 이루어진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물과 같이 사는 격이다. 구원자는 물과 같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물고기와 같다.
4.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1차 목적은 '인간 구원'이고, 2차 목적은 '구원받은 자의 영과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다. 고로 구원자와 같이 살지 않는 자는 아예 구원하지 않는다.
5. 한 남자가 일생 동안 '사랑'을 목적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여 온 세상을 다니며 자기와 평생 같이 살 사랑하는 한 여자를 찾으려 다녔다. 그리고 여자를 만날 때마다 묻기를 "나의 나라에 데려가면 나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까?" 했다. 그때 같이 살겠다고 한 여자만 많은 거액을 들여 이동시켰다. 만일 "당신과는 살기 싫지만, 당신 나라에 가서는 살고 싶네요." 하면, 안 데려간다. / 성자도 땅의 구원자도 인간이 하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지 않고, 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만 한다면 구원하지 않는다.
6. 인간이 죄에서 고생한다고,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7. 하나님께서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45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지구'를 창조하시고, 수백만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사람'을 창조하신 뜻은... 인간의 '영'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는 곧 그 육을 통해서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다.
8. 농부가 과일나무를 기르는 목적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다. 고로 1년 동안 과일나무를 사랑해 주고 퇴비하고 가꾸며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과일나무가 잎과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열지 않으면, 농부가 과일나무에 퇴비를 하고 사랑해 주고 관리해 주면서 투자하겠느냐. / 성자도 땅의 구원자도 인간이 구원만 받고 제 마음대로 산다면, 구원해 주지 않는다. 혹여 구원받았더라도 스스로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9.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이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광야 땅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자기 삶으로 살았다. 고로 구원이 그 단계에서 멈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2세대만 어리더라도 광야의 다음 구원 단계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곳이 구원의 목적지였다.
10. 하나님과 성자와 땅의 구원자를 사랑하면서 살 때까지만 구원을 받는다. 사랑하다가 말면 구원을 상실한다.
11. 존재는 존재할 때까지만이다.
12. 구원받을 자들이 성자와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할 때까지만 구원의 주관권에서 산다. 하다가 말면 점점 시들면서 구원의 주관권에서 벗어나 끝난다. 만사의 모든 일이 이와 같다.
13. 일할 때까지만 일이 되지, 일에서 손을 떼면 일이 안 된다. 구원도 그러하다. 주와 구원받을 자들의 사이도 그러하다.
14. 초가집 인생인데, 1억 천만금을 달라고 하면 누가 그 값을 주고 사겠느냐.
15. 자기를 황금같이 만들어 놔야 황금 값을 주고 사 간다.

16. 구원만 해 달라고 하지 말고, 구원해 가도록 자기를 황금같이 만들어라.
17. 좋은 환경에 별장을 지어 놓으면, 서로 사 가려고 몰려든다.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성자가 데리고 가도록 자기 인생을 값있게 만들어라.
18. 열매 없는 묘목은 과수원지기가 안 사 간다.
19. 주(主)는 마음의 열매를 열 인생인지 보고서 구원한다.
20. 토지를 제대로 못 보고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산다면, 땅을 사도 농사를 못 짓고 다시 땅을 팔게 된다. 인생의 마음의 땅을 먼저 바라. 마음의 땅을 먼저 만들어라.
21.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신비함을 깨닫고, 창조자를 사랑하면서 창조자가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라.
22. 무엇을 만들 때는 만드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도 인간도 어떤 것을 만들고 그 '목적'을 못 이루면,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게 끝나 버린다.
23. 변화되는 모습에 기쁨과 희망이고, 변화된 것을 쓰는 데 기쁨과 희망이다.
24. 창조주는 <인간의 세상>을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화평의 세계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만으로 허무하게 살아간다.
25. 창조주가 <인간의 세상>을 아무리 '변화의 희망거리'로 창조해 놓고, 만물을 쓰면서 사는 것을 '기쁨과 사랑거리'로 창조해 놓고 살게 하셨어도...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이 원시인같이 되어 살아가니, 사랑하며 살아도 일시적인 육적 쾌락에서 살아가고, 변화를 보고도 못 느끼고, 행해도 오히려 고통을 받으며 산다.
26. 전능하신 창조자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자만 육도 혼도 영도 깨닫고 기뻐하면서 살게 하셨다.
27. 창조주가 창조한 만물들과 인생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일체 되어 살지 못하니, 변화를 보고 행해도 제대로 못 느낀다. 고로 자기 차원대로만 살면서, 일시적인 육적 예술과 문화를 꽃피우며 각종 허무한 행위들을 한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혼과 영이 일체 되어 그 행위대로 사망으로 간다.
28. 매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두고서 100% 행하기다. 못 하는 만큼 죽은 것이라고 생각해라.
29.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려고 마음먹고 하면 구원한다.
30.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 자료가 있으니, 이제 인간이 제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제대로 살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된다. 이와 같이 신앙 세계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고 삼위가 역사하여 인간의 육과 영을 구원하신다. 고로 자기가 하면 구원받고 휴거된다.
31. 안 하는 자는 모든 자료를 줘어도 못 하고, 그 영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2013년 6월 21일 자체 기도회 말씀> 지금 이때는 '휴거 당세 기간'이다

1. 내가 답답하게 하면, 내 상대도 답답하게 하게 된다.

2. 내가 철저히 해야, 내 상대도 철저히 한다.
3. 내가 성자 앞에 답답하게 행하면, 내가 성자를 볼 때 성자까지도 답답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4. 항상 내 행위의 답이 오게 된다.
5. 내 행위가 문제이며, 그로 인해 답을 받는다.
6. 답답하게 편지가 온다고 생각했더니, 내가 답답하게 편지를 해서 답답하게 편지가 온 것이었다. 내가 자세히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내 편지를 받는 자가 그것을 보고 속 시원하게 편지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7. ‘문제’가 답답하면 ‘답’도 답답하다.
8. 내가 온전할 때, 상대도 온전해진다.
9. 세상이 좋게 변해야, 하늘도 좋게 변한다.
10.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가 변화되지 않을 때는 그 주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11. 변화될 만큼 행해야 변화된다.
12. 행한 만큼 변화다.
13. 천국만큼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못 간다.
14. 나의 변화는 내가 목적인 만큼의 변화다.
15. 변화된 만큼 희망이 이루어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16. 영계도 육계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항상 겉돌면서 산다.
17. 지구 세상을 놓고 공중에서 겉돌면, 지구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영계도 그러하다. 겉돌면 못 들어가고 모른다.
1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모르고 겉돌면서 신앙을 하면, 그 혼도 영도 영계에서 겉도는 삶을 산다.
19. 인생의 삶도 겉도는 삶을 사는 자들은 성공하지 못한다.
20. 집 안에서는 잔치하는데, 담장 밖에서 겉돌면 아무 조용없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21.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겉도는 삶은 그 자리를 면치 못한다.
22. 겉도는 삶은 거죽의 삶이다.
23. 신앙생활도 겉도는 삶은 유익이 별로 없다. 이는 과일 껍데기만 먹고 사는 격이다. 이는 답 없이 문제만 안고 사는 삶이다.
24. ‘문제’는 겉이라면, ‘답’은 속이다.

25. 100% 행해야 답이 온다.
26. 행한 만큼 반응이다.
27. 내 반응은 상대의 반응이다.
28. 만물들도 내가 행하는 만큼 반응을 보인다.
29. 기도도 하는 만큼 반응을 보인다.
30. 알고 행하기다.
31. 행하지 않으면 관념으로, 지식으로만 알게 된다. 깨닫고 행하기다!
32.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니, 답이 없는 것이다.
33. '구시대'는 걸이다. '새 시대'는 속이다.
34. '구시대'는 문제다. '새 시대'는 답이다.
35. '신약'은 문제다. '성약'은 답이다.
36. 문제 속에서 살면 답답하다. 답을 찾고 살아야 답답한 것이 풀린다.
37.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자기 인생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게 살고 있다.
38. 답은 있는데 답을 못 찾는 이유가 있다. 이는 자기가 답에 해당되게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답은 있다.
39. 답에 합당하게 행해야 답이 온다. 답은 하나님이시다. 성자이시다. 너희를 구원하는 주다.
40. '답'은 성자 앞에 온전하게 행하기다.
41. 생활의 문제는 생활이 답이다. (행하면 답이 오는데, 자기가 행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42. 바로 가면 답인데, 옆으로 가니 문제다. * 좀 더 정신을 집중하여 지금부터 전하는 잠언을 잘 새겨듣기 바랍니다.
43. 어떤 목적을 두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다르고, '답'도 다르다.
44. 어떤 입장으로 보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설명 방법'이 다르고, '답'도 다르다.
45. 확대해서 설명하면 우주가 지구의 정원이고, 지구는 집이다. 축소해서 설명하면 지구는 정원이고, 자기 집이 집이다. 더 축소해서 설명하면 자기 집이 집이고, 자기 자신은 주인이다. 더 축소해서 설명하면 자기 육이 집이라면, 혼은 주인이다. 더 축소해서 설명하면 자기 혼은 집이고, 자기 영은 주인이다.
46. 확대해서 설명하면 하와, 곧 여자가 선악과다. 축소해서 핵만 설명하면, 여자의 금단의 지체만이 선악과다.
47. 휴거 기간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1000년 혼인 잔치 기간>이고, 축소해서 핵만 생각하면 <성자 본체가 재림하고 그 본체가 살아 있는 기간>이다.

48. 결혼식 날만 혼인 잔치날이다. 이는 즉 휴거 날과 같은 날이다. 결혼 후 나머지 기간은 결혼 생활의 삶이다. 결혼 생활을 결혼식 날로 볼 수 없다. / <휴거>도 성자가 세상에서 분체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따르는 자들의 육과 영을 휴거시키는 기간만 ‘휴거 기간’이다. 이때는 성자가 분체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다. 곧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이다. 나머지 기간은 휴거된 자들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듯 같이 사는 ‘생활 휴거 기간’이다.

49. 휴거는 1000년 동안 안 한다. 즉 성약역사 1000년 기간 전체가 휴거 기간이 아니라는 말이다. <휴거>란, 성자 본체가 땅에 와서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에 시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신부로 준비된 자들의 영을 데려가는 것을 말한다. 곧 ‘신부로 준비된 영들’이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 기간만 <휴거 기간>이다.

50. 1000년 성약역사 기간은 휴거를 맞고, 후손들이 ‘휴거 복음을 펴는 기간’이다.

51. 1년을 1000년으로 확대해서 본다면, 휴거 기간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과 같다. 1년 내내 계속해서 과일과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한다. 과일과 곡식은 1년에 한 번 거둬들인다. 이와 같이 1000년 성약역사 기간 동안 휴거는 딱 한 번 있다.

52.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시작한 후 구원역사 7000년 동안, 성자는 딱 한 번 다시 와서 땅에 분체를 세워 그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그 분체를 통해서 시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육과 영을 성자의 신부로 만들면서, 육은 땅에서 살 동안에 휴거의 삶을 살고, 그 영은 하늘 천국으로 휴거되게 하신다.

53. <결혼>은 일생에 한 번 한다. <휴거>도 성약 1000년 동안 딱 한 번 한다.

54.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려고 10대와 20대에 크면,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와 일생에 한 번 결혼한다. 이와 같이 과거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은 역사가 크는 과정이다. 그 후에 성약 때 성자가 ‘신랑’으로 오셔서 땅의 신부로 준비된 자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분체로 세워 신부로 부활되는 말씀을 주어서 사람들의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킨다.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 동안에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하고, 영은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휴거시킨다. <휴거>는 분체가 살아 있을 때 한 번뿐이다.

55. <휴거 기간>에 땅에서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준비시키면, 그 영은 각자 차원 급으로 휴거된다.

56. 결혼식을 하면, 나머지 기간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기간이다. 이와 같이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에 시대 신부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들은 육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고, 영이 천국으로 휴거된다. 나머지 성약 1000년 기간은 복음으로 성약역사가 번성하는 기간이다. 고로 이 기간은 <휴거 기간>이라고 하지 않는다.

57. <휴거 당세 기간>에 해당되는 자들만 휴거 이야기를 한다. <휴거 당세 기간>에도 구시대 사람들은 늙어서 휴거 이야기를 안 한다.

58. 휴거되는 자는 마치 어떤 임금의 아들 혼인 잔치 때 그 많은 대상자들 중에서 오라고 뽑힌 자와 같다.

59. 가르쳐 줘도 못 하고, 알아도 못 하는 자가 있다. 자기가 책임을 못 해서 못 하는 것이다.

60. 후에는 휴거되고 싶어도 못 된다. <휴거>는 시대 혜택이다. 예수님 때도 그 당세에 태어난 자들만 메시아 예수님의 육신을 보았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육신을 못 봤다. <휴거>도 당세에 성자가 육으로 쓰는 분체가 살아 있을 때만 해당된다. 성자의 육신도 역시 당세 때만 볼 수 있다.

61. 성자가 쓰는 분체도 세상만사의 법칙과 똑같다.

62. 때가 되면 꽃이 지듯이, 성자가 육으로 쓰는 분체의 인생도 진다. 때가 되면 해가 지듯이, 성자가 육으로 쓰는 분체도 때가 되면 점점 사라져 세상을 떠난다. 분체는 이를 알고 할 수 있을 때 할 일을 다 해 버리고, 더 할 일이 없

록 매듭짓고 간다.

63. 결혼식은 하루면 족하다. 이들이 필요 없다. 계속 결혼식을 하면 지겨워서 쓰러져서 못 한다. <휴거 기간>도 한때다. 곧 ‘분체의 일생 기간 동안’이다. 이 기간도 당세로서는 긴 기간이다. 분체가 죽은 후에 태어나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분체도 성자도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동안 살아야 된다. <휴거 당세 기간>은 ‘분체의 일생’이다. <휴거 당세 기간> 때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성자 분체가 그 육신으로 쓰는 분체를 통해 말씀하면, 분체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의 육도 영도 변화시켜 주고, ‘휴거의 영’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휴거되게 해주는 것이다. 남녀도 몸으로 사랑하는 때만 사랑하는 때이고, 나머지 시간은 그로 인해 사랑 생활을 하는 것이다. <휴거>도 성자가 세상에 분체를 보내어 그를 통해서 대화하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때만 ‘휴거 때’다. 성약역사의 후손들은 사랑 생활을 하며 산다. 분체가 없으니 육으로는 대화를 못 한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과 육으로 대화를 한 자가 있느냐. 분체가 살아 있을 때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육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64. 예수님 때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니, ‘시대 말씀’이 끊어졌다. 메시아급 차원의 성장은 그 차원에서 끝났다. 3년 동안 한 것이다.

65. 메시아가 살아 있을 때 제일 귀한 것은 ‘시대 말씀’이다. 육신이 죽으면 ‘말씀’이 끊어진다.

66. 메시아가 살아 있어도 개인의 신앙이 잠자든지 신앙을 파선하면 ‘말씀’이 끊어진다. 그러면 더 성장이 안 되고, 성장이 멈추고, 신앙이 아예 죽기도 한다.

67. 하나님은 말을 안 들으면 말씀을 끊는다고 하셨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고로 말씀을 안 주면, 영이 죽는다.

68. 시대적으로 ‘말씀’을 안 주던 때는 그 시대가 사망권에 있었던 때다.

69. 말씀을 줄 때 어서 성장하고 변화하여라!

70. 올해는 ‘말씀의 해’다. 이때 휴거되는 말씀을 주니, 육신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영을 온전히 변화시켜라. 때 지나면 끝난다.

71. 성자의 육으로 쓰는 자는 마치 태양과 같다. 해가 지면 식물들이 자느라고 성장이 멈춘다.

72. ‘시대 말씀’을 듣고 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네 영을 온전히 변화시켜라! 밤이 오면 말씀이 없다. 지금은 낮이다. 그러나 낮이 깊었다. 해가 기울고 있다 함이다. ‘말씀을 주는 기간이 조금 남았다.’ 함이다.

73. 누구든지 지구 세상에 살면서 ‘시대 말씀’을 안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휴거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74. 섭리사에 와서도 걸돌기 신앙을 하는 자는 휴거되지 않는다. 집에 들어갈 때는 ‘문’으로 들어간다. 집에 들어가서 또 ‘방문’을 열어야 방으로 들어간다. 방에 성자와 분체가 있다.

75.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모두 그 차원에서만 산다. ‘말씀’으로 창조하여 변화시킨다.

76. 가령 차 주인이 차를 빌려 주는데, 몇 시까지만 빌려 주고 그 이후에는 다시 가져간다 하자. 그러면 주인이 차를 빌려 주었을 때 그 시간에 약착같이 할 일을 해야 된다. 차로 1분이라도 더 가야 된다. 차로 가면 100배 빠르고, 또 오랫동안 갈 수 있다. 차가 있을 때 차를 타고서 빨리 가라. 차는 성자이며 분체다. 한 시간 동안 차로 갈 것을 못 가면, 걸어서 100시간 동안 가야 된다. 또한 돌 조각상을 만들려면 정과 쇠망치가 있을 때 해야 된다. 주인이 정과 쇠망치를 가져가면, 손과 손톱으로 돌을 쪼아 만들어야 된다. 정과 쇠망치는 성자이며 분체다. 이와 같이 분체가 있을 때 자기 혼과 영을 만드는 것이다!

77.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고, TV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필요 없이 세상 문화나 세상 사랑에 기웃거리고 사느냐. 이때 네 영혼을 휴거의 영으로 못 만들면, 영원히 못 만든다.
78. 주는 이미 가능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서 그들만 끌고 간다.
79. 제 갈 길 가는 자는 시간을 뺏기니 그냥 놔두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 자를 끌고서 화염 속을 빠져나온다. 뛰쳐나와 보니, 아직도 화염 속에서 TV를 보고 있고, 세상 사랑에 빠져 있고, 이성 향락에 빠져 있구나. 집이 불타고 무너지고, 철도 나무도 다 타 버렸다.
80. 호텔에 불이 났다고 나오라고 해도 이성 향락을 즐기며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서로 안고 사랑하고 있구나. 정전이 되어 전기가 나가 자동문이 안 열리니,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죽고 말았다. 현시대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81. 모르면 죽음의 길도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간다. 아는 자는 질겁하고 뛰쳐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계선을 넘어와서 쳐다본다. 화염 속에서 고통 소리와 비명 소리만 들린다.
82.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자가 무슨 성공을 했다고 그리 큰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며 사느냐.
83. 영혼의 고통은 육신이 세상에서 극적으로 받는 고통의 100배, 1000배, 10000배도 넘는다. 영은 안 죽으니, 얼마든지 고통을 받는다. 육의 몸은 없어도 마음·정신·생각과 혼이 자기 영과 일체 되어 고통을 받으니, 육이 받는 것과 같다. 육의 몸은 죽으니까 한계 이상의 고통은 못 받는다.
84. 영은 육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기쁨’도 느끼고 ‘고통’도 느낀다. 고로 영은 기쁨이든지 고통이든지 육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느끼면서 받는다.
85. 영이 천국에 가면 영체로 가니, ‘사랑’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느낀다.
86. 지구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 해도 ‘육신’은 한계 이상은 못 누린다. 진수성찬 100만 인분(人分)을 줘도 역시 자기 양뱃에 못 먹는다. ‘육’은 한계선이다. 영은 영광을 육보다 수천 배 더 누린다.
87. 지구 세상의 돈과 물질도 개인 한계밖에 못 누린다. 육은 늙어 가고 죽어 가니 쇠약해서 자기 개인의 한계밖에 못 누린다.
88. 지구 세상 육의 영광은 곧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누리면서 뭐가 그리 크다 하느냐.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왕의 영광을 누리도 아이가 천국을 열고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89. 양로원에 가 봐라. 인생의 결말은 모두 그러하다. 육신이 늙고 병들기 전에 자기 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러라. 그리함으로 먼저 영원한 것을 차지하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라.
90.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인간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냐? 일순간 구름같이 스쳐가는 것들을 열고 어린아이같이 좋아서 기뻐하고 웃는구나. 허무와 허탈이다.
91.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한 자는 인생의 해가 지면 육은 끝나고, 그 영은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그런 자가 성공한 자냐?
92.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영들을 보면, 가련한 자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누구든지 자기 영을 보고 살면, 지금처럼 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93. 그럴 줄 알았다면, 누가 그렇게 했겠느냐.

94. 육신은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영은 지옥길로 가고 있다.
95. 육신도 천국길로 가고, 영도 천국길로 가면서 살기다.
96. 육이 짐승 같은 삶을 살면, 그 영이 짐승같이 되어 짐승 같은 영의 세계로 간다.
97.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어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영이 짐승같이 되어 짐승 같은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모두 영계를 보아라.
98. 육계도 육으로 보면 다 보인다.
99. 몸이 썩고, 마음이 썩고, 혼이 썩고, 영이 썩는다.
100. 육은 빛이 나도 실상은 썩고 있다.
101. 금빛 나게 해 놓고 숭배해도 실상 그 육은 썩어 시체가 되었고, 그 영은 영원한 사망에 있다. 그에 속한 자들의 육도 영도 썩게 하고 있다.
102. 주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라.
103. 자기 것은 자기 사고, 자기 정신이다.
104.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105. 자기 몸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살면, 주는 그 몸을 돌보지 않으신다. 자기 몸도 주의 것으로 생각해야 돌보신다.
106. 주의 것만 기른다.
107. 마음을 어디에 두고 크느냐에 따라서 주의 것이 된다.
108. 육은 입에 과자나 음식을 넣을 때 그 순간만 느낀다. 고로 ‘육’은 말씀을 들어도 그때만 좋아하고 만다. ‘영’은 한번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면, 영의 몸 전체가 말초신경과 같아서 긴 시간을 두고 온전히 느끼면서 행한다. 고로 영적인 자가 되어야 강하고, 튼튼하고, 오래 견디고, 표적을 일으킨다!
109. ‘육’은 성자의 사랑을 받든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받아도 사랑할 때 그때만 느낀다. ‘영’은 육보다 생각과 느낌의 차원이 10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면 육보다 1000배 이상 강하게 사랑을 느끼고 오랫동안 느낀다.
110. ‘육’은 겨울철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 애인이 만지듯 느끼고, ‘영’은 알몸일 때 만지듯이 느낀다. 고로 ‘영’으로 느끼고, ‘마음·정신·생각’으로 느끼고, ‘영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육적인 자보다 비교가 안 되게 더욱더 기뻐하며 더 많이 행한다.
111. 꿈에 어떤 자와 사랑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이는 첫째, 자기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니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둘째, 상대가 자기를 많이 좋아하니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셋째, 서로 사랑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 분별하여라.
112. 성자는 꿈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보이면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계시해 주신다.

<2013년 6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32. 사람들이 영계에 못 가니, 성자는 ‘상징’으로 보여 계시하신다. 어느 때는 ‘실체’를 보이기도 하신다.

33. 선생의 육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때에는 ‘상징자’를 통해서 보이기도 한다.

34. 성자도 본체를 못 보여 주니, 만물을 통해서 상징체로 보여 주시고 해당되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체로 보여 주신다. 최고의 상징체로 쓰는 자는 ‘분체’다. 분체도 ‘본체’가 있고, ‘상징체’가 있다. 상징체로 조은 목사를 쓸 때도 있고, 범석 목사를 쓸 때도 있다. 어느 때는 생명을 관리하는 자를 상징체로 쓸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말씀을 외치는 자를 상징체로 쓸 때가 있다. 성자도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상징체로 쓰신다. 혼계에서 보면 어느 때는 상징체로 아기도 쓰고, 청년도 쓰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쓴다. 어느 때는 자기 지도자를 쓰고 성자가 오셔서 말씀하신다. 어느 때는 귀뚜라미를 쓰고 와서 보이면서 성자를 나타내신다. 자기를 깨닫게 할 때는 자기 몸을 상징체로 쓰고 성자가 나타나기도 하신다.

35. 성자도 분체도 일을 맡긴 자를 ‘상징체’로 쓰고 나타난다.

36.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자기가 어떤 환경의 차원에 처하면, 그 실체로 그 차원의 것이 보이기도 하고, 혹은 그 환경의 차원에 처한 자를 성자가 상징체로 쓰고 나타나 보이기도 하신다. 성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행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라. 이는 영계를 분별하는 기본이요, 원리요, 이치다. 또한 영계를 분별하는 일억 천만금의 말씀이다.

37. 성자는 우리들과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도 인간의 영은 사망으로 간다. 이는 인간이 자기 책임을 못 했기 때문이다.

38. ‘자기 죄’ 때문에, 혹은 ‘자기 책임’을 못 해서 하나님과 구원자 믿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 행하기를 싫어하여 행하지 않음으로 지옥에 가는 영들이 구름같이 많다. 성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신다. 그러나 누가 “저 사람은 세상에서 너무 악한 일만 했으니, 저 사람의 영은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성자는 “아무리 네게 잘못했어도 지옥만은 보내서는 안 된다. 지옥이 아니어도 보낼 곳이 많다.” 하신다.

39.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을 못 하여 자기 영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가지고서는 성자는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러나 누가 그 영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성자는 말리신다. 그만큼 지옥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이다. 누가 떠밀어서 보낼 곳도 아니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못했더라도 다른 고통을 줄 테니 지옥만은 보내지 말라고 하신다. /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40. 전능자를 안 믿고, 세상에 보낸 구원자를 안 믿은 죄는 참으로 크고도 크다. 중한 죄다. 그로 인해 그 영은 지옥에 간다.

41. 왜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은 자의 영은 지옥으로 가겠느냐. 종교는 자유의지인데,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은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 하나님과 구원자를 믿는 것, 그것이 ‘자유’다. 믿으면 사망에서 석방되어 자유를 얻고, 안 믿으면 사망에 간혀 자유를 뺏긴다.

42. 전능자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는 것이 왜 죄가 되어 그 영이 지옥에 가는가?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지 않으면 참포도나무가 못 되니, 주인이 캐내서 모두 불 지르는 격이다. / 인생은 돌포도나무요, 구원자는 참포도나무다. 접붙여야 참포도 열매인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 심판을 면한다.

43.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는 것이란, 자기가 하나님과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이 구원의 접붙임이 되어 참영이 되고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휴거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영은 지옥과 상관없게 된다.

44.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는 것이 그렇게도 큰 죄다. 믿으면 평생 선하게 산다. 하나님과 구원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은 엄청난 공적이다. 또 시대 말씀으로 전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엄청난 공적이다. 그 공적으로 천국을 얻는다.

45.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는 자는 전혀 공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무(無)로서 아무것도 없다.

46. 단순히 생각하면 ‘하나님과 구원자를 안 믿은 것이 뭐 그리 큰 죄이지?’ 하지만, 따져 보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난다.

47. 모두 성자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자기 영혼을 구한다.

48. 성자는 본체가 오직 성자의 뜻대로 근본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를 원칙으로 하신다. 하물며 구원받을 인생들이라.

49. 성자를 닮지 않으면, 성자와 함께 천국에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성자의 마음과 성품과 행위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성자를 닮으라고 하는 것이다.

50.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 마음과 성격과 심정과 행위를 안 닮으면, 성격과 행동이 안 맞아서 거슬려서 같이 못 산다.

<2013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상대의 마음을 읽고 알고 투시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고쳐야 된다.

2.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뜨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밝히 알고 다스린다.

3.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도 밝히 본다.

4. 자기 모순과 죄를 알고 그것을 먼저 없애라. 그래야 자신을 밝히 보고, 그제야 형제의 마음을 밝히 보게 된다.

5.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상대도 그 차원으로밖에 못 본다.

6. 소경은 자기도 못 보고, 상대도 못 본다.

7. 소경이 눈을 떠야 자기도 바로 보고, 상대도 바로 본다.

8. 자기 마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남의 것도 바로 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바로 본다. 삼위가 보낸 자도 바로 본다.

9. 자기 마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분별한다.

10. 구시대인들은 자기 마음과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셔서 역사의 눈을 뜬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행하셔도 모르는 것이다.

11. 네 자신을 제대로 보고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12. 먼저 네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야 형제의 것도 밝히 보고 판단한다.

13. 자기 마음 만들기다.

14. 잡초 밭과 가시나무 골짜기였던 월명동을 개발해서 만들었듯이, 자기 마음도 만들거다.

15. 마음도 안 만들면 그대로다.

16.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휴거된다.

17. 마음의 들보는 세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 첫째,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이어받은 타고난 근성과 성품이 있다. 둘째,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로 부터 상처를 받아서 생긴 성격과 성질이 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위와 삶으로 생긴 성격과 성질이 있다. → 이러한 마음의 들보들을 빼내어라!

18.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거다. 마음의 들보를 안 빼내면 휴거되지 않는다.

19. <마음의 들보>는 각자 다르다. 마음의 들보가 무엇인지 자기는 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성적 생각과 행위’가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된 것’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습관’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썩은 정신과 사고’가 들보다. 이러한 마음의 들보를 완전히 빼내어라. 안 빼내면 휴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휴거되지 않는다.

20. 이성(異性)의 들보는 꼭 분체에게 회개하여 성자에게 와야 된다.

21. 늦게 회개하면 휴거가 막힌다.

22. <휴거의 비밀> 중의 하나가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기’다.

23. 자기 마음에서 들보 같은 모순과 죄를 빼내야 <휴거의 최고 비밀>인 ‘성자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된다.

24. 마음의 들보를 안 빼내면, 성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25. 암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암이 생겼든지, 살면서 음식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암이 생겼든지, 자기 체질 때문에 암이 생겼든지 수술하여 암세포를 떼 내야 된다. /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성격과 모순이든지, 살면서 형제들과 부딪히며 생긴 성격과 모순이든지, 자신의 생각과 행위 때문에 생긴 성격과 모순이든지 모두 빼내고 없애야 된다.

26. 자기 마음의 들보를 싹 빼내고 고쳐야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밝히 보고 따른다. 고로 분체가 누구인지, 분체가 왜 왔는지, 분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분체와 일체 된다. 자기 마음의 들보를 안 빼내면, 휴거의 핵심인 분체를 제대로 못 맞는다. 고로 성자를 못 맞는다. 고로 1차 휴거 100선을 못 넘고, 2차 휴거 200선을 못 넘고, 3차 휴거 300선을 못 넘는다.

27.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자기를 밝히 보고, 시대를 밝히 보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밝히 보고, 성자를 밝히 보고, 시대 말씀을 밝히 보고 믿고 따르며 행한다. 고로 성자를 맞아 1차 휴거 100선을 넘고, 2차 휴거 200선을 넘고, 3차 휴거 300선을 넘어 천국의 신부 성인 성약성으로 가게 된다.

28. 자기 마음의 들보들을 100% 빼내야 자기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100% 기능을 발휘하여 성자도 분체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도 사랑하게 된다. 또한 말씀을 제대로 행하게 된다. 고로 완성급 휴거를 이루게 된다.

29. 휴거의 최고 차원에 오르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볼 때 흠이 없어야 된다. 자기를 흠 없게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을 모순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 이성을 벗어나서 살고, 성령도 받고, 전도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기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그리도 어렵다.

30.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만큼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진다.

31. 성자는 마음의 들보를 짝 빼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를 보시고 “이제 본인의 책임분담을 해서 천국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기뻐하며 최고로 귀히 쓰신다.

32. 마음에 들보가 박힌 자는 성자까지, 구원자까지 자기 주관으로 보면서 “이것이 모순이다.” 하며 오해하고 생각한다. 고쳐라!

<2013년 6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상대의 마음을 읽고 알고 투시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제대로 알고 고쳐야 된다.

2.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뜨는 만큼 상대의 마음도 밝히 알고 다스린다.

3.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도 밝히 본다.

4. 자기 모순과 죄를 알고 그것을 먼저 없애라. 그래야 자신을 밝히 보고, 그제야 형제의 마음을 밝히 보게 된다.

5. 자기 자신을 아는 만큼 상대도 그 차원으로밖에 못 본다.

6. 소경은 자기도 못 보고, 상대도 못 본다.

7. 소경이 눈을 떠야 자기도 바로 보고, 상대도 바로 본다.

8. 자기 마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남의 것도 바로 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바로 본다. 삼위가 보낸 자도 바로 본다.

9. 자기 마음과 행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을 분별한다.

10. 구시대인들은 자기 마음과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니, 자기 자신도 못 보고,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재림하셔서 역사의 눈을 뜬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행하셔도 모르는 것이다.

11. 네 자신을 제대로 보고서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12. 먼저 네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야 형제의 것도 밝히 보고 판단한다.

13. 자기 마음 만들기다.

14. 잡초 밭과 가시나무 골짜기였던 월명동을 개발해서 만들었듯이, 자기 마음도 만들기다.

15. 마음도 안 만들면 그대로다.

16.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휴거된다.

17. 마음의 들보는 세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 첫째,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이어받은 타고난 근성과 성품이 있다. 둘째,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로 부터 상처를 받아서 생긴 성격과 성질이 있다. 셋째, 자기 자신의 생각과 행위와 삶으로 생긴 성격과 성질이 있다. → 이러한 마음의 들보들을 빼내어라!

18.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기다. 마음의 들보를 안 빼내면 휴거되지 않는다.

19. <마음의 들보>는 각자 다르다. 마음의 들보가 무엇인지 자기는 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성적 생각과 행위’가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된 것’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습관’이 들보이고, 어떤 사람은 ‘썩은 정신과 사고’가 들보다. 이러한 마음의 들보를 완전히 빼내어라. 안 빼내면 휴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휴거되지 않는다.

20. 이성(異性)의 들보는 꼭 분체에게 회개하여 성자에게 와야 된다.

21. 늦게 회개하면 휴거가 막힌다.

22. <휴거의 비밀> 중의 하나가 ‘자기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기’다.

23. 자기 마음에서 들보 같은 모순과 죄를 빼내야 <휴거의 최고 비밀>인 ‘성자 사랑’을 제대로 하게 된다.

24. 마음의 들보를 안 빼내면, 성자를 사랑하지 못한다.

25. 암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암이 생겼든지, 살면서 음식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암이 생겼든지, 자기 체질 때문에 암이 생겼든지 수술하여 암세포를 떼 내야 된다. / 이와 같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 성격과 모순이든지, 살면서 형제들과 부딪히며 생긴 성격과 모순이든지, 자신의 생각과 행위 때문에 생긴 성격과 모순이든지 모두 빼내고 없애야 된다.

26. 자기 마음의 들보를 싹 빼내고 고쳐야 자기 자신을 밝히 보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밝히 보고 따른다. 고로 분체가 누구인지, 분체가 왜 왔는지, 분체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분체와 일체 된다. 자기 마음의 들보를 안 빼내면, 휴거의 핵심인 분체를 제대로 못 맞는다. 고로 성자를 못 맞는다. 고로 1차 휴거 100선을 못 넘고, 2차 휴거 200선을 못 넘고, 3차 휴거 300선을 못 넘는다.

27.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자기를 밝히 보고, 시대를 밝히 보고, 자기를 구원할 자를 밝히 보고, 성자를 밝히 보고, 시대 말씀을 밝히 보고 믿고 따르며 행한다. 고로 성자를 맞아 1차 휴거 100선을 넘고, 2차 휴거 200선을 넘고, 3차 휴거 300선을 넘어 천국의 신부 성인 성약성으로 가게 된다.

28. 자기 마음의 들보들을 100% 빼내야 자기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100% 기능을 발휘하여 성자도 분체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들도 사랑하게 된다. 또한 말씀을 제대로 행하게 된다. 고로 완성급 휴거를 이루게 된다.

29. 휴거의 최고 차원에 오르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볼 때 흠이 없어야 된다. 자기를 흠 없게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마음을 모순 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 이성을 벗어나서 살고, 성령도 받고, 전도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기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그리도 어렵다.

30.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만큼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진다.

31. 성자는 마음의 들보를 싹 빼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를 보시고 “이제 본인의 책임분담을 해서 천국 작품이 만들어졌구나!” 하고 기뻐하며 최고로 귀히 쓰신다.

32. 마음에 들보가 박힌 자는 성자까지, 구원자까지 자기 주관으로 보면서 “이것이 모순이다.” 하며 오해하고 생각한다. 고쳐라!

<2013년 6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33. 성자는 ‘마음’을 보고, 하늘의 신부로 택한다.

34. ‘마음’ 때문에 섭리사를 따라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다.
35. ‘육’은 점점 늙고 변한다. 천국까지 못 가고 세상에서 끝난다.
36. ‘마음’은 혼과 영과 연결되어 있기에 영원히 간다.
37. ‘마음’을 티 없이 제대로 만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 ‘육’도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혼’도 ‘영’도 변화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고 신부로 만들어 온전히 휴거되게 한다.
38. 휴거되는 데 있어서 마음은 생명이다.
39.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 때문에 휴거된다. 신랑 성자는 ‘마음’을 보고 하늘 신부로 택한다.
40. 자기 육을 보고서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보고서 희망을 가지고 만들어라!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시대 말씀을 듣고 고치면 된다.
41. ‘마음이 핵’이니, ‘마음’ 보고 택한다. 그러니 시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온전히 고쳐라!
42. 성자도, 분체도 마음 안 맞으면 못 산다. 육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원하기보다 마음이 선하고 착하며, 그 마음에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자를 원한다.
43. 자기 마음의 들보와 모순을 빼내야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난다.
44. 이 귀한 휴거 때에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마음의 들보를 빼내는 일’이다.
45.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싸우고 이혼하고 헤어지는 이유는 마음이 안 맞기 때문이다. 마음의 들보가 있는 자는 아무리 육이 멋있어도 같이 못 산다.
46. 자기 마음, 성격, 혈기, 근성을 못 고치고 산 자들은 섭리사에 왔다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마음이 안 맞아서 세상으로 나갔다. 자기 마음을 온전히 고쳐야 ‘맞는 천국’이다.
47. 마음의 티와 들보를 안 빼낸 자는 가치가 없다. 마음에 보화가 묻혀 있다. 그 보화가 핵이다.
48. 마음이 좋은 자란,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다. 그 마음에 ‘성자 사랑’이 폭발돼야 한다. 그러면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진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49. 마음의 들보에 대해서 말해 주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빼내야 된다. 말해 줘도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못 해 준다.
50. 먼저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그 마음에서 나 성자를 100% 사랑하게 된다.
51. 마음의 들보는 호리라도 빼내기다. 그것을 빼내야 자기 기능을 다 발휘하여 의의 날개를 치면서 마지막으로 휴거 차원에 올라서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52. 이 휴거의 때에 섭리사 신부들이 지금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들보를 빼내기’다!
53. 휴거되려는 마음만 간절히 갖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여라. 그래야 100선에 올라 휴거되고, 100선에 오른 자들은 200선에 오르고, 200선에 오른 자들은 300선에 오른다.

54. 들보 속에 이성 사랑, 동성 사랑, 세상 사랑, 자위행위 등이 다 들어 있다. 아직 이성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많다. 어느 날 심판의 말씀이 나간다. 지금이 회개할 기회이다.

55.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면, 사탄이 조건이 없으니 그 마음에는 못 들어간다.

56. 저마다 자기 마음의 들보가 무엇인지 깨닫고 빼내어라.

<2013년 6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마음'은 마치 운동장에 갖다 놓은 작은 고무풍선 하나와 같다. 가만 놔두면, 온종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저리 굴러다닌다. 다스려라! 손으로 잡고 원하는 대로 다스리라는 것이다.

2.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것은 지난 후에 다시 보면 후회되고, 언제 봐도 모순이 보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3. 옛것은 최선을 다해서 완전하게 했어도 후에 새 역사의 것에 비하면 차원이 낮다.

4. 신약의 말씀은 신약 차원에서 온전한 말씀이지만, 성약 말씀에 비해서는 차원이 낮다.

5. 미래를 내다보고 발달될 역사에 맞춰서 해 놓으면, 역사가 흘러 미래에 가서 봐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6.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면 그것으로 족하여 더 행하지 않는다. 고로 미래까지 보고 더 차원 높여 행하지 않는다.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를 보고서 행해 놓고, 현실에서 미래까지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7. '육신 만족'만을 위한 차원에서 살지 말아라. '영의 만족'까지를 위한 차원에서 살아야 영이 휴거되어 하늘나라 천국까지 간다.

8. 어린아이가 자기 선에서 최고 만족한 대로 만들고 살고 있어도 어른이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당세에도 만족하게 만들어 놓고 미래까지 내다보고 만들어 놓고 살기에 어린아이 선에서는 최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른,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들이다.

9. 미래까지 내다보고 행하기다.

10. 현실에서 자기가 최대한도 자기 지능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행했느냐가 문제다.

11. 자기 지능과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만들고 행하여라. 인간의 머리는 아무리 좋아도 인간 차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면, 평생 영원히 완전하다.

12.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인간의 생각은 항상 땅을 면치 못한다.

13. 사람의 육적 생각과 영적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다.

14. 첫째, 미래까지 내다보고 행하기다. 둘째, 차원을 높이고 행하기다. 셋째,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기다. 그러면 '만족', '완전'이다.

15. 차원 높이 생각해도 돈이 없고 자료가 없으면 못 한다.

16. 미래까지 내다보고 최고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려면, 그만큼 힘들다.

17. 집을 지어도, 어떤 곳을 개발해도 사람들은 당세만 보고 한다. 돈, 자료, 인력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

두 그 차원을 못 벗어난다.

18. 하나님의 구상대로 최상으로 하면, 당세의 자료를 최대한으로 쓰니 세월이 가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19. 하루를 살아도 ‘하루’라는 때를 나눠서 보면, 새벽 - 오전 - 오후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오후까지 내다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행하면 오전 시간이 지나서 봐도, 오후 시간이 지나서 봐도 만족하다. 확대하여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20. 월명동은 하나님의 구상이다. 고로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잔디성전, 운동장, 돌 조경, 야심작, 호수 등 그 위치는 영원하다. 성자바위도, 큰바위얼굴 바위도 영원하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구상으로 살아라. 일생을 하나님의 구상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원하다.

21. 기성은 어리니까 육적으로 산다. 말씀도 때가 지나면 이리저리 바뀌 댄다.

22. 섭리사 말씀은 성자가 그 분체를 통해서 전한 완전한 말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원을 높이면서 간다. 고로 반세기 가도 영원하다. 영 부활, 영 휴거는 영원하다.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땅에서 끝나는 것도 영원하다. 1000년이 가도 변함없다.

23. 30개론 말씀과, 성경과, 현시대의 수백 가지 성경의 의문을 풀 모든 말씀은 1000년이 가도 변함없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이다.

<2013년 6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자신을 밝히 보고, 형제도 밝히 본다.

2.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구원자도 밝히 보고, 성자도 밝히 보고, 시대도 밝히 보고, 시대 말씀도 밝히 알고 따른다.

3.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휴거된다.

4.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그 분체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듣고 사는 목적은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면서 변화시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휴거되어 천국에 가기 위함이다.

5.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지 않고서 휴거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6.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최고의 희망과 기쁨이다.

7. 성자와 구원자가 사랑해 줘도 자기가 하나님과 성자의 뜻으로 좋게 변화되지 못하면, 그 ‘육’도 세상에서 유익이 없고, 그 ‘영’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휴거되지 못한다.

8. 자기 행위로 자기를 만든다.

9. 자기 육의 행위로 자기 영을 만든다.

10. 자기를 만드는 대로 차원 높은 자가 되어 거기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다.

11. 매일 자기 행위로 자기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변화시켜야 된다.

12. 인생은 육신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에 ‘시대 구원자를 만나서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 영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로 할 일이다.
13. 육신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 봤자, 육신은 매일 늙고 죽어 간다. 고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 줘도 육적으로만 살면, 그 희망이 서산에 넘어가는 해와 같다.
14. 영은 영원하다. 만드는 대로 끝이 없이 빛난다. 고로 자기 영을 위해 살면, 영이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아서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15.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은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다.
16.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재다.
17. <휴거>도 관념이 아니라 실재다.
18. 지금은 육과 영이 휴거되는 때다.
19. 자기 영의 변화 상태를 보아라.
20. 육이 휴거된다고 믿는 자들은 관념에 빠져 사는 자들이다. 고로 그들에게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1. 실제로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변화의 삶을 살아야 ‘영’도 변화되어 휴거된다.
22.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변화의 삶을 살면, 영도 점점 삼위의 모습을 닮아서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고 결국 휴거된다.
23. 꽃이 변해서 점점 과일이 되듯이, 영이 육신의 행위에 따라 변화되어 온전한 하늘나라 형체가 되어서 사는 삶 자체가 ‘휴거된 삶’이다.
24. 육신이 성장하거나 변화될 때도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듯이, 영도 순간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점점 변화된다.
25. 자기 ‘영’은 자기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정한 한 기간을 두고서 점진적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아무 때나 변화되지 않는다. <휴거 때>에 ‘휴거되기 위한 변화’를 한다.
26. ‘휴거 기간’은 바로 지금 이때다. 고로 이때에 늘 휴거 말씀을 주는 것이다.
27. 분체가 살아 있는 때가 휴거 때다. 고로 당세에 전해지는 이 시대 말씀은 모두 다 휴거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매일 계획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육, 마음, 혼, 영을 변화시켜야 된다.
28. 익은 과일부터 따듯이 ‘온전히 준비된 영’부터 휴거된다. 지금 이때는 영들이 자기 육의 행위를 따라 변화되면서 점점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29. 휴거되는 영들은 계속 높은 차원으로 간다. 100선에서 소생급 휴거를 이룬 영들은 200선 장성급 휴거를 향해서 가고, 마지막으로 300선 완성급 휴거를 향해서 간다. 그러다가 휴거 기간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만들어진 대로 각각 해당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30. 지금 <휴거>가 진행되고 있다.

31.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적으로 몸을 부딪히면서 집중해서 해야’ 일이 된다. 이와 같이 <휴거>도 ‘매일 계획적으로 자기가 몸을 부딪히면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어 결국 ‘휴거의 영’이 된다.
32. 휴거는 ‘자기 때’가 있고, ‘휴거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휴거되지 않기에 숨넘어가는 소리를 한다.
33. 화장실에 급히 갈 때만 급한 소리를 하며 뛰어간다.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서는 급한 소리를 안 한다. 뛰어가지도 않는다.
34. 막차를 탈 때만 급한 소리를 하며 뛰어간다.
35. 하나님과 성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급해서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며 외칠 때는 ‘때’가 왔으니 빨리하라는 것이다.
36. 말씀을 전할 때 깨닫고 행하여라. 그때 안 하면, 네 영을 뺏긴다.
37. 자기 마음속의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라. 이는 남이 해 줄 일도 아니고, 성자와 분체가 해 줄 일도 아니다. 자기가 할 일이다.
38.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마음의 들보에 대한 인봉을 떼 줬으니 마음의 들보를 빼내라.
39. ‘마음의 들보’는 각자 자기 모순들이다. 무지한 것, 혈기를 내는 것, 나쁘고 강하고 무서운 성격,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것, 서운함을 가지고 사는 것, 모여서 형제를 헐뜯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육적인 것, 속이는 것, 여자가 숨기고 남자를 사귀거나 남자가 숨기고 여자를 사귀는 것, 동성애, 전도 안 하는 것, 게으른 것,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기와 생명을 관리하지 않는 것 등이다. 또한 전도하여 생명을 자기중심으로 키우고, 성자와 분체에게 연결하지 않아 변화되지 않게 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 있듯이 자기 마음에 자기중심의 들보가 있는 자들이다.
40. 자기 마음과 행실의 들보를 빼내지 않고서 휴거되는 영은 하나도 없다.
41. 시대 말씀을 배우고도 성자와 분체를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마음에 들보가 있는 자다.
42.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육도 혼도 영도 온전히 변화되어 지금의 자기 차원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간다. 고로 어떤 영은 휴거의 영이 되어 휴거되고, 어떤 영은 100선을 넘어 200선에 오르고, 어떤 영은 200선을 넘어 300선에 올라 휴거를 최고로 완성시키게 된다.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43. 매일 자기 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최고로 할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매일 회개’는 기본이다.
44. 변화되지 않는 자는 희망이 없는 자다.
45.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영이 좋게 변화돼야 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신의 모습이 된다.
46. 변화되지 않은 영은 볼 것이 없다.
47. 육은 매일 허무하게 변해 간다. 고로 자기 영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 영이 날마다 천국길로 간다.
48. 사람이 마음·정신·생각을 변화시키기가 최고로 어렵다. 나쁜 마음, 나쁜 성격, 혈기, 서운한 마음을 꼭 고쳐야 된다.

49. ‘자기 마음’이 자기 육과 영의 운명을 결정한다. 마음먹는 대로 육신이 행하고, 마음먹은 대로 혼이 활동하고, 마음 먹고 육이 행한 대로 영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다.
50. 결국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흥하게 한다.
51. ‘마음의 들보를 빼내는 것’은 휴거되는 자로서 절대 할 일이다. 마음의 들보를 빼내야 성령을 받아도 곤고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 지속된다.
52. 먼저 마음의 들보를 빼내고 성자와 분체를 사랑해야 참된 사랑을 인정받는다.
53. ‘사람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한다. 잘하다가도 순간 불의한 시간을 보내며 자기를 낙심하게 한다. 그러니 성자의 마음을 절대 가져라. 그래야 매일 좋게만 변화된다.
54. <휴거>는 ‘마음·정신·생각’에서 좌우된다. 그러니 네 마음을 다스려라. 네 마음을 주관하고 지배하여라! 오직 성자와 분체의 마음을 가져라! 성령의 마음을 가져라!
55.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지막 휴거가 좌우된다. “꼭 휴거되겠다!” 결심하고 해야 된다. “나는 안 된다. 못 한다.” 하면, 마음에서 꺾여서 결국 아무것도 못 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거다!
56. 마음의 이성 문제와 행실의 이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휴거된다 생각해도 실상은 안 된다.
57. 이성의 죄를 ‘용서하도록’ 성자의 육에게 죄를 고하여라. 말과 행실의 회개로 너희 마음에서 이성 사랑의 들보를 빼내라!
58. 육이 온전하게 행하여 그 영이 성자의 신부로 변화되어 휴거돼야 하니, 자기 몸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지켜라.
59. 눈의 들보만큼이나 마음에 지옥의 고통을 주는 것이 ‘이성 타락’이다.
60. 마음의 티와 들보를 빼내고, 성자와 분체를 진정 사랑하거다!
61. 매일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정신·생각을 갖거다!
62. 사랑의 부활을 완전히 이루거다!
63. 변화다. 부활이다. ‘부활’은 육이 부활하는 것과 상관없다. 그러나 변화되면, 죽은 시체가 살아나듯 ‘영’이 사망에서 살아난다.
64. 날마다 의를 행하여 변화되어라. 변화되는 것이 휴거다. 변화의 차원을 높이면서, 차원별로 휴거되는 것이다.
65. 영이 휴거되다가 멈춘 자는 ‘육신 변화’가 멈춘 자다. 육이 행하지 않으면 영이 변화되지 못하고, 결국 휴거되지 못한다.
66. 구원자를 모르는 자는 마음에 ‘무지의 들보’가 있는 자다. 이 들보를 꼭 빼내야 된다.
67. 자기 영 하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육신이 늙은 자들이 많다. ‘매일 자기를 변화시키기!’다.
68. 매일 계획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기도하여 혼체로도 보고, 신령한 마음으로도 깨닫고 살아가라!

69. 휴거만 원하기보다 ‘변화’다!

70. <휴거>는 자기 육의 행실로 자기 영을 변화시키면서 이룬다. 자기 육이 이 시대 변화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영을 온전한 신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71. 좋게 변하면 ‘변화’다. 좋게 변하면 그 영이 날마다 생명길로 간다. 나쁘게 변하면 ‘변질’이다. 변질되면,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영이 심판을 받아 사망길로 간다.

72. 매일 좋게 변화되어라. 매일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랑에 불타 행하면 혼도 영도 빛나게 빨리 변화되어 온전한 신부가 되고, 차원을 높이면서 천국으로 간다.

73.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쓰면서 행해야 휴거가 이루어진다.

74. 때 지나면 휴거는 영영 끝난다. 휴거는 지구 세상에서 한 번뿐이다. 아담 이후 지금 이 시대까지 <휴거>는 6000년 만에 처음이다. 마치 일생 동안 한 번 결혼하려고 어린아이 때부터 20년 동안 성장해 왔듯이, <휴거>를 위해서 구약 4000년을 거쳐 신약 2000년 동안 성장해 온 것이다.

75. 성약 1000년 기간은 결혼하고 사는 기간과 같다. 성약 1000년 기간 중에서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은 결혼식 날과 같은 <휴거 때>다. 이때만 휴거 역사가 일어나고, 나머지 1000년 성약역사 기간은 휴거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다.

76. <휴거 기간>은 섭리인 전체에게는 길어도 성자와 분체가 개인에게 주는 시간은 짧다. 고로 휴거 기간은 짧다.

77.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 동안만 휴거 기간이고, 그 기간 중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휴거 기간이 따로 있다.

78. 휴거 당세 기간에서도 자기 휴거를 이루는 이때,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휴거를 이루게 해 주고 있다. 그 시간이 다 가고 있다. 고로 성자도 분체도 날마다 급하다고 소리 지르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한다.

79. 휴거 당세 기간 중에서도 자기 때에 성자가 역사해 주고 분체가 도우니, 이때 목숨 걸고 해야 된다.

<2013년 6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에게 해를 주니 미워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던 자도 막상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이다.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2. 죽음같이 큰 형벌의 대가는 없다.

3.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도 죽여 놓고서는 눈물이 나온다. 죽음으로 영원히 다시 못 살고 끝나기 때문이다.

4. 죽음같이 큰 저주와 형벌은 없다.

5. ‘영혼의 죽음’은 ‘육의 죽음’에 비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다. 고로 지옥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가는 곳이지, 누가 보낼 곳이 못 된다. 하나님과 성자께 누가 어떤 사람의 영을 지옥에 보내자고 하면, 원수라도 지옥에 보내자고 대답하지 않으신다. 지옥은 극적 형벌을 받는 곳이라서 누가 보내자고 한다고 해서 보내는 곳이 아니다. 지옥은 자기 행위로 가야 될 곳이다. 자기 행위의 대가로 무시무시한 고통을 영원히 받아야 될 곳이다. 고로 누구를 원망할 수 없다.

6. 죽지 않고 살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죽음’에 비해 작은 형벌이다.

7.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인생을 살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다. 이는 죽음을 체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8. 어린아이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와 같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른다. 메시아만 안다. 전능자의 신이 임했기에, 또 역사를 펴면서 모든 것을 겪고 알기에 인간 중에서 생명의 가치를 최고로 잘 안다.
9. 죽음이 그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아느냐.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10. 인간 최고의 죄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는 죄다. 그 죄로 인해 그 영혼은 죽음을 당하여 영원히 살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11.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를 믿지 않기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세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다. ‘복’이다. ‘축복’이다. 선택은 자기 자유다.
12.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것’이 최고 형벌이고 무서운 일인듯이,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죽는 것’이 최고 무서운 형벌이고 사건이다. ‘영의 죽음’이란, 영이 천국 쪽에 못 가고 지옥 쪽, 악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13.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다. ‘영이 죽는다’라는 말은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 무저갱, 지옥 쪽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14. ‘육신’은 죽으면 땅에서 썩고 사라지지만, ‘영’은 육같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의 세계에서 소멸된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쪽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이를 보고 영이 죽었다고 한다.
15. ‘육’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가 보낸 구세주를 믿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순종해야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서 존재한다. 그렇지 못한 영은 다 흑암으로 사라져 영원히 고통받는다.
16.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시대마다 삼위는 땅의 구원자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해 말씀을 주고 역사하시니, 땅의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삼위를 믿고 사랑해야 된다. 그는 상징적으로 ‘보이는 성자이며 하나님’이라고도 한다. / 하나님과 성자는 계시하실 때 만물을 통해서 하신다. 계시하실 때 그것을 믿어야 죽음을 피한다. / 하물며 하나님과 성자가 뽑아서 보낸 구원자를 안 믿으면, 구원이 되겠느냐. 하나님과 성자는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육신을 쓰고 계속해서 행할 것을 행하며 역사하신다.
17.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성자는 이 세상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세상을 대표해서 땅의 인간 중에 한 사람을 뽑아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주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첫 번째로 그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자에게 나아와 구원받게 된다.
18. 구원받으면, 그 영이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살게 된다.
19.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다.
20. 영은 안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영이 살았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21. 세상에서도 육은 ‘삶과 죽음’이다. 육신이 사는 것이 축복이다. 육신이 죽으면 육은 소멸되어 끝난다. 영도 죽으면 소멸되어 끝난다.

22.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로 할 일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것을 못 하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10000배나 낫다.

23.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애인을 사랑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 욕이 이것을 안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어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사망으로 간다. 고로 그 영이 사망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그래서 욕이 태어나서 땅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만 배, 억 배 더 낫다는 것이다. /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며, 자신도 창조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순리에 의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기쁨, 자기 흥분이다.

2. 타인이 자기를 기쁘게 해 줘도 자기 자체에서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기쁨도 흥분도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도 그러하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이 그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흥분이 일어나게 해 주셔도 자기 자체에서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4. 남녀가 사랑한다 하자. 남자가 아무리 여자를 기쁘게 해 주고 사랑해 줘도 여자 자체에서 기쁨과 흥분이 없으면 그 사랑을 못 느낀다. 자기 자체에서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야 상대의 사랑과 기쁨과 흥분을 흡수하여 느낀다. 성자와도 그러하다.

5. 상대가 없어도 자기가 깨닫고 자체에서 시동이 걸려 혼자 기쁘고 흥분하는 자는 살아 있는 자다.

6. 성자 주님을 상대로 삼고 사랑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자기가 좋아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살아 있는 자다. 하늘을 짝사랑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은 인간을 늘 사랑하시니, 인간만 사랑하면 된다.

8. 인간끼리는 혼자 기뻐하고 흥분하면 짝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늘 인간을 누구나 사랑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든지, 안 하든지 인간이 자체적으로 혼자 기뻐하면서 언제든지 삼위를 사랑해도 그것은 짝사랑이 아니다.

9. 자기 기쁨, 자기 흥분이다. 자기 자체에서 시동이 걸려서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야 존재한다. 언제든지 스스로 기쁨과 흥분의 시동이 걸리는 것은 <A급 신앙>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셔서 기쁨과 흥분의 시동이 걸리는 것은 <B급 신앙>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시며 시동을 걸어 주셔도 자기 스스로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C급 신앙>이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실 때만 기다리다가는 신앙의 부도가 난다.

11. 자기가 미쳐서 기뻐하고 흥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하고 사랑하여라. 그 신앙은 형통한다.

12. 자기가 뭘 해 놓았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너를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느냐. 네가 전능자를 찾아·가·는 신앙을 하여라.

13. 누구든지 사람의 뇌에는 기쁨과 흥분이 딱 차 있다. 생각하고 행하면, 자체적으로 기쁨과 흥분이 폭포수처럼 넘쳐

흐른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항상 인간이 먼저 하는 것이다. 계획과 구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먼저 하는 것이다.

15. 자기 기쁨과 자기 흥분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문제'다.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고, 찬양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굳은 뇌를 풀어라.

16.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애인 사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줘도 여자에게 기쁨과 희망이 없는 이유는 여자의 신경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생각 문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무리 사랑해 주고 기쁘게 해 줘도 인간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흥분이 없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 정신, 생각, 체질·사랑의 핵인 뇌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뇌가 굳었고,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중풍병자 뇌가 됐기 때문이다. 고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행하고, 삼위를 불타게 미쳐서 사랑하고, 하루에 300번 이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시동을 걸어라. 그러면 뇌가 굳고 마비된 것이 풀려서 삼위의 사랑을 느끼고, 삼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기쁨이 오고 흥분이 된다. 이것을 계속하여라.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한 뇌가 굳어 있으면, 삼위의 사랑을 못 느끼고, 그로 인해 오는 기쁨과 흥분을 못 느낀다. 굳어진 뇌를 풀어라.

19. 하늘을 향한 반응이 약한 자들은 기쁨과 흥분이 약하여 그만큼 삶의 보람도 약하다.

20. 자기 개발이다. 개발한 만큼 느끼고, 깨닫고, 감동으로 행하게 된다.

2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못 느끼고, 하늘을 향한 기쁨과 흥분이 적은 자는 육적인 자다. 영이 무디고, 뇌가 무딘 자다. 감각이 죽은 자다. 정신과 영이 병든 자다.

22.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여 행하는 만큼 느껴진다.

23. 기도해야 굳은 뇌가 풀리고, 마음·정신·생각이 예리해져서 혼체가 제대로 활동한다. 고로 영적인 자가 된다.

24. 뇌가 무디고, 정신이 무디고, 감각이 무딘 자는 말씀을 들어도 기쁨도 없고 흥분되지도 않는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흥분돼야 그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도 승리하게 된다.

25. 자기 기쁨, 자기 흥분의 책임 위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역사하신다.

<2013년 7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식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 사람이 이를 보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한다. 이때 식물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신앙적으로 그리하신다.

2. 자기 생명은 자기가 전심을 다해 관리해야 된다. 신앙이든, 건강이든, 생활이든 자기가 다스리고 주관하며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살리려고 하신다.

3. 자기 생명, 자기 신앙, 자기 건강, 자기 생활은 '자기 자신'이 살리려고 하는 제1의 존재자다. 살리려고 하는 제2의 존재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구원자다.

4. 자기 자체에서 기능을 못 하면, 사랑하는 애인이라도 자기 지체가 아니니 돕는 것밖에 못 한다.

5. 자기 생명을 지키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 자체가 기능을 하면서 움직이며 행한다. 자기가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행해야 된다. 자기가 못 하면, 공급을 받아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공급을 받아도 그것 역시 자기가 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루는 것도 그러하다. 구원자가 구원해 주지만, 자기가 구원자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구원자의 공급을 받으며 구원을 이뤄야 된다.
6. 상호 존재하지만, 자기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7.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재시키면서, 또 공급도 받으면서 자기를 존재시킨다.
8.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 공급을 받아도 자기를 존재시키지 못한다. 구원을 이루는 데도, 휴거를 이루는 데도 그러하다.
9. 자기를 스스로 힘 있게 존재시키면서 행할 것을 행하면, 많은 도움을 받아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성자의 뜻을 이룰 수 있다.
10. 자기 자생 능력대로 외부의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힘을 받아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11. 누구든지 신앙적으로 얼마나 자생 능력이 있느냐다.
12. 신앙적인 자생 능력에 따라서 성자와 구원자가 주는 힘을 받아서 그 힘을 소화시켜서 쓸 수 있다.
13. 나무뿌리가 흡수 능력이 약하면, 외부에서 주인이 퇴비를 해 줘도 흡수를 못 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그러하다.
14. 사람이 자기 몸을 최고로 사랑해도 내과 기능이 약하면, 외부에서 먹고 영양을 넣어 줘도 소화를 못 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 주면서 영양을 공급해 줘도 자기 몸의 소화 기능만큼만 소화시킨다. 이와 같이 인간이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자기 책임을 하면서 기능을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역사해 주고 함께해 주는 그 힘을 받는다.
15. 사람이 젊고 활발해도 '그 정신과 행위가 얼마나 하늘을 향해 있느냐. 얼마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려고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정신과 행위만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생 능력이며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 세상을 위해 쓴 정신과 행위는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다.
16. 인간 스스로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자생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 이와 같이 '신앙'도 자생 능력이 없으면 죽는다.

<2013년 7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자체에서 기쁨이 솟아야 자기 마음이 흥분되고 좋다.
2. 타인이 아무리 기쁘게 해 주고 마음을 흥분시켜 줘도 자기 자체에서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흥분되지 않으면,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3. 자기 기쁨, 자기 흥분이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행하면 일생 동안 유익이 되고, 생명길을 가게 되고,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휴거되고, 휴거된 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고, 자기 영을 천국까지 보내게 된다.
4. 자기 자체의 기쁨과 흥분, 그리고 상대가 주는 기쁨과 흥분이 하나 되어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
5. 절대 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들을 사랑해 주고 기쁘게 해 주고 마음이 흥분하게

해 줘도 인간 자신들이 자기 자체에서 기쁨이 솟고 흥분되지 않으면, 기쁨을 못 느낀다.

6. 남자가 바닷물을 들어다 온몸에 쏟아붓듯이 여자를 사랑해 줘도 여자의 마음과 신경이 죽어서 자기 자체에서 기쁨과 사랑을 못 느끼면, 여자는 아무것도 못 느낀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우주 전체를 들어다가 쏟아붓듯 사랑을 해 줘도 인간 자체에서 기쁨에 흥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기쁘지도 않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사랑을 안 해 줘서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체가 하나님과 주를 찾고 사랑하지 않으니 기쁘지 않아서 못 느낀 것이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9.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강하게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고, 영계를 보는 등 즉시 반응이 일어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해가 떠서 지기까지 각 사람들에게 각종으로 합당하게 사랑을 퍼부어 주며 사랑으로 기쁘게 해 주시나, 인생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해 마음이 흥분되지 않고 제 할 일만 하면서 사는 이유는 자기 자체에 사랑의 기쁨과 흥분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무서운 병을 고쳐야 된다.

11. 이 무서운 병을 고치려면 본인이 기도하고, 극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행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결사적으로 간구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 봐야 된다.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땅에 보낸 자를 300번 이상 부르며 매달려야 된다.

1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에 시동이 걸려서 세상에서 최고로 기뻐하면서 삼위의 사랑에 미쳐 삼위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자께서 시대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 그 말씀을 배우고 믿고 행하면, 자기 자체 사랑의 기쁨과 흥분에 시동이 걸린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인간을 사랑하신다. 고로 자기만 삼위일체를 미치도록 사랑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

14. 자기는 마이너스극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플러스극이다. 둘이 일체 되어 사랑해야 뇌에서 사랑의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사랑의 기쁨과 흥분이 일어난다. 고로 몸에도 반응이 일어나 뜨겁다.

15. ‘하늘과 땅이 같이 해야’ 자기 자체에서 기쁨이 솟고 흥분이 된다. 자기와 상대가 같이 하면, 상대방부터 사랑이 오고, 둘이 같이 행하여 일어나는 것도 있어서 ‘사랑의 기쁨과 흥분의 반응’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일어난다.

16. ‘왜 나는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지? 하나님과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는 사랑받도록 예정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말하는 자들은 자기 자체에서 기쁨과 흥분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자기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안 부르니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자기 책임을 못 하니 사랑의 기쁨과 흥분의 반응이 오지 않는 것이다.

18. 하늘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흥분이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자신에게 기쁨과 흥분의 시동이 걸리도록 마음과 뜻과 최선을 다해 믿으려 하고 사랑해야 된다. 자기가 안 하면, 아무리 하늘로부터 강한 사랑이 오고 기쁨이 와도 못 느낀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면 해 주신다. 그러나 자기가 삼위의 사랑과 기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의 아쉬운 것들이나 구원 문제나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자기 살기에 바쁘다.

20. 지금은 마지막 심판과 휴거의 때다. 고로 신혼골수를 꿰뚫어 살피시는 전능자는 다 해 주신다. 그러나 성자를 위로 하고, 사랑하고, 그 심정을 알고 구해야 된다. 심정도 모르고 사랑하면 안 된다.
21. 자체 기쁨과 흥분이 솟아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22. 자기가 구원받고 휴거되려고 자체 시동을 걸어야 된다.
23. 자기 자체가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야 된다.
24. 자기 자체가 6000년 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 지구 세상 어디에서도 모르는 이 말씀을 배우고 행 하려고 자신의 마음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
25. 자체 시동이 안 걸리는 자는 계속 행하여라. '지속적인 실천'은 자극을 일으킨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복해야 시동이 걸린다.
26. 자기 자체의 기쁨과 흥분이 솟아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느끼게 되고, 사랑의 기쁨이 솟고, 신앙 의 기쁨이 솟아 흥분되어 말씀을 깊이 듣고 지켜 행하여 '휴거'된다. 그러므로 휴거 100선에 오르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 자들도 100선이 되어 1차 휴거되고, 100선에 오른 자는 200선에 올라 장성급 휴거를 이루게 되고, 200선에 오른 자는 300선 완성급 휴거 단계에 능히 오를 수 있다.
27. 무조건 휴거 300선에 가겠다고 하지 말아라. 100선에서 할 것이 있고, 200선에서 할 것이 있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다.
28. 자기가 살아나야 산 자를 볼 수 있고, 이 시대 전능자와 성령님과 성자가 지구 세상의 인생들을 구원하여 휴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9. 이 시대의 사명자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를 제대로 모르면, 그가 절대로 휴거의 문에 통과시키지 않는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휴거의 문을 열게 한다.
30. 모두 자체 시동이 강하게 걸려서 자체 기쁨과 흥분이 솟아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는 것을 느껴라.
31. 자기 기쁨과 자체 흥분이 일어나는 만큼 '신의 존재'도 느끼고, '신의 사랑'도 느끼고, '자기를 향한 하늘의 뜻'도 느끼고, '말씀'도 느껴 감동받고 행하여 자기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변화되어 휴거의 영이 된다.
32. 구원해 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성자가 구원자를 보냈으니, 그를 알아야 도움이 된다.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휴거도 이루어진다.

<2013년 7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시고 땅의 구원자를 보내어 시대 구원을 시켜 주시고, 수백 가지를 도우셨다. (아멘.)
2.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의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악인들을 심판하여 모두 멸해 주셨다. (아멘.)
3. 하나님은 섭리사를 비방하는 자들을 행한 대로 매일 갚아 주신다. (아멘.)
4. 북한은 무력 도발을 하면서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한국을 멸하려 하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여 행하지 못하게 해 주셨다. 2011년 12월 17일에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아멘.)

5. 북한이 원자폭탄을 터트려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때, 세계 대국들도 한국 편만 들었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고로 한국은 공포에 떨면서 애간장 태우며 밤잠을 못 자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을 멸하여 해결해 주셨다. (아멘.)
6. 성자는 항상 “싸우지 말아라. 기도하여 먼저 사탄과 싸워 이겨라. 전능자에게 고하여 해결하여라.” 하셨다. (아멘.)
7.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시대 보낸 자의 영광의 길이 기울어져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에 성약역사도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 고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것도 기울어졌다. 시대 사람들의 행위대로 고통, 재난, 재앙, 전쟁 등이 온다. 하나님이 인생들의 행위대로 결정하시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여 악인과 함께 고통받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라. (아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결정되면, 노아 때같이 의인도 같이 그 영향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보호받기에 그 고통이 너무 크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의인들이 영향 받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인만 따로 그 행위대로 심판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만일 악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태양을 어둡게 한다면, 의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난이 오게 한다면, 의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8. 성자는 “악인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다.
9. 의인과 악인이 한 배를 타고 간다 하자. 악인이 배 안에서 의인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혔다 하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려 배를 파선시키려 결정하시기 전에, 의인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다. (아멘.) 악인을 멸하려 배를 파선시키면 악인은 죽지만, 그 영향을 받아 의인도 갖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구원을 얻어도 고통 속에서 구원을 얻고, 더러는 죽기도 한다. 이와 같이 처지와 뜻을 알고 기도하여 이기고 행해야 된다. (아멘.)
10. 하나님의 심판에 의인들이 영향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피할 곳으로 가게 되어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가 있는 곳이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 주신다. (아멘.)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내용은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라는 감동만 주어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가 끝나고 그 일들이 닥치면, ‘이런 일 때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니 기뻐하며 감사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은 자는 감사하지 못한다.
12. 민족과 섭리세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일의 사명자에게 “기도하라!” 하고 감동을 주시어, 먼저 기도 조건을 세우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13.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자만이 그 일이 해결되면 성자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한다.
14.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한 자가 그 일이 해결되면 가장 기뻐한다.
15. 민족을 사랑할 줄 모르면 기도를 안 한다.
16. 이와 같이 자신도, 구원자도, 섭리사도 사랑할 줄 모르면 기도를 안 한다.
17. 사생결단하고 살지 않으면, 섭리사에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자와 구원자의 사랑을 모른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18. 해 준 것을 모르고, 심정을 모르고, 행한 것을 알아주지 않고 증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말하기도 싫고, 대화도 끊어지고, 사랑도 멀어진다.
19.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해 준 것을 알아줘야 더 해 준다. 그리고 더 가까워지게 된다.

20. 하나님과 성자께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만 하지 말아라. 도와줬기에 생명의 위급함을 피한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니, 심령이 깨끗하지 않고 신령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것이다.

21. 구원자가 잠도 못 자 가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과 성자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어 해결됐는데도... 하나님과 성자께 그만큼 기도하여 감사하다고 하지 못하고 있다.

22. 삼위일체의 행함을 알아줄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를 더욱 잘 알게 되어 육도 영도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된다.

23. 해 준 것 몰라주는 자는 짝사랑하게 하는 자다. 고로 사랑해 주나 마나 한 자다.

24. 해 준 것을 알아주고 증거하며 사랑해 주는 자는 짝사랑하게 하는 자가 아니다.

<2013년 7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25. 성자는 행하실 일들을 은밀하게 보이시고 증거하게 하신다.

26. 엘리야 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다. 섭리사에도 많은 계시자들이 있지만, 성자는 그 일에 합당한 자에게 계시하여 알리신다. 은밀하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27. 하나님도 성자도 결국 '그 일의 사명자의 기도'로 심판하신다.

28. 꿈에 고릴라를 죽이는 계시는 독재자의 심판을 말한다. 독재자를 고릴라로 보이시며, 그 특성이 고릴라와 같다 함을 나타내신 것이다.

29. 고릴라를 잡아 죽이듯이, '기도'로 악인을 멸하게 했다는 것이다.

30. 고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1번도 그리되었고, 2번도 그리되었다. 이제 3번의 심판이 남아 있다. (아멘.)

31.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총검으로, 무기로, 무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기도'로 전능자 하나님께 간구하여 악과 싸워 악을 멸한다. (아멘.)

32. 큰 사람은 큰 악인을 맡아서 처야 된다. 호랑이와 치타는 큰 동물을 사냥한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사명자는 민족과 세계와 섭리사의 큰 악인들을 사냥하여 물이 피가 되게 한다. 전능자에게 큰 악인들을 놓고 고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아멘.)

33.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다. (아멘.)

34. 이 시대 사명자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는 기도를 안 하든지,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막고 핍박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기도를 안 하면, 누구보다도 큰 해를 보게 된다. 곧 시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받고, 또 역사를 마음대로 뛰지 못해서 고통받고, 또 악한 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아 큰 해를 입는다. 고로 시대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놓고 하나님과 성자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과 성자는 그 기도를 듣고 심판하신다. (아멘.)

35. 악인들이 공포를 주고 두려운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 의인들이 하나님과 성자께 간구해야 된다. 전능자는 선과 악을 다 통치하신다. 의인의 편을 들어 주신다. (아멘.)

36. 악인은 의인이 잘 지내자고 해도 결국 의인의 것을 없애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다.

37. 원자폭탄이 한 번 터지면 100만 대군도 못 당한다. 오직 '기도'해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 원자폭탄을 쏘려고 하는

자만 심판하면 된다. 지옥에 가서 자기 입에다 원자폭탄을 넣고 쏘면 된다. (아멘.)

38. 악인은 항상 악한 일을 준비하고 의인을 치기 원한다. 고로 하나님은 악인이 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도록 조종하신다.

39.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하지 말아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고, 환난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악인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고, 의인들도 제 갈 길을 가게 하여라. (아멘.)

40. 지구 세상에는 행악자들과 불순종자들이 너무 많다. 고로 하나님은 올해도 지구촌 여기저기에 심판을 많이 하신다. 심판은 청소다. 악을 청소하지 않으면, 의인들까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41.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면서 “나는 잘했는데 왜 이같이 고통을 받지?” 한다. 자기가 잘한 것만 따지고 생각한다. 잘못된 것이 많아도 그것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잘한 것을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잘못된 죄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저울에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달아 보신다. 악이 많으면 심판을 받으니, 늘 회개하여 악을 없애야 된다. (아멘.)

42. 국력도, 군사도, 무기도 믿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만 믿고 행해야 된다. (아멘.) 다윗 왕도 그같이 하여 존재했고, 섭리역사도 그같이 하여 존재해 왔다. (아멘.)

43. ‘육’으로 싸우면, 선이 악에게 패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자를 앞세우고, 구원자를 앞세우고 ‘기도’로 싸워야 이긴다! (아멘.)

44. (성자)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행함을 알아주고 증거하여라. 그러면 계속 너희를 위해 행할 것이다! (아멘.)

45. 성자가 애간장 태우며 옆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후에 고통을 당하면서 슬피 울고 통곡하게 된다.

46. 성자를 사랑하는 데에 딴 생각 하지 말아라.

47. 성자는 신랑으로서 사랑으로 너를 맞으러 오시는데, 너는 마음 준비, 영 준비 안 하고 뉘을 잃고 살고 있구나.

48. 당세에 천대를 받더라도 ‘영원한 미래’를 보라! (아멘.)

49. 시대의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난다. 가치 있다! (아멘.)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드리고, 주와 대화해라. (아멘.) 어떤 것은 축복인데 죄로 생각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니, 지난날을 자세히 생각하여라.

51.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기도’를 하여라. 고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전에 너의 기도를 듣고 결정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여라. (아멘.)

52. 폭탄이 터진 후에 기도하지 말고, 폭탄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결정하게 하여라.

<2013년 7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사명자가 간구하지 않아도 불의와 악을 행한 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 같이 행하지 않았기에 죄가 된다.

2. 하나님 편에서 같이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3. 악을 보고 심판할 것을 기도해야 의인으로서 죄가 안 된다.
4. 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죄다.
5.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모으고 헤쳐야 죄가 되지 않는다.

<전환>

1. 자기를 관리하여라. 그래야 자기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 마음·정신·생각 관리다. 육신 관리다.
3. 욕, 혼, 영을 사랑으로 관리하여라.
4. 사랑의 완성이다. 그래야 휴거를 이룬다.
5. <휴거>는 사랑의 완성이다.
6. 월명동을 만들듯이, 자신도 꾸준히 만드는 것이다.
7. 주의 사랑 길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온다.
8.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데는 '성자의 생명의 말씀'이다.
9. 인생은 '문제'요, 또한 '답'이다.
10.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요, 행하면 '답'이다.
11. 자기 건강관리를 못 하면 평생 병과 싸우다가 끝난다.
12. 자기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마치 물가에 있는 어린아이를 살피듯 자기 건강을 의학적으로도 살피고, 기도하면서 살피고, 약해지지 않게 운동하고 잘 먹으면서 살피는 것이다.
13. 마음·정신·생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하다. 항상 성자와 교통해야 심령이 건강하다. 전능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심령이 건강하다.
14. 욕, 마음·정신·생각, 혼, 영 건강이다.
15. 건강의 좌우명은 '자기 관리'다.
16.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과 사람을 신비하게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셨다. 그러나 만물과 자기를 사용하는 인생들은 신비한 것을 모른다. 안다고 하나, 조금 알고 조금 쓴다. 고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17. 누구든지 만물의 존재물을 하나하나 실제로 확인해 보면서 그 실상을 보아라. 사람도 각 지체의 구조와 작용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해 보면서 그 실상을 보아라. 그리고 정말 신비하게 창조했다고 시인하며 창조자에게 고백해 보아라. 그러면 대답해 주실 것이다.

18. 자기 창조자를 깨달아라. 창조의 근원자를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창조자에게 못 간다.

19. 눈으로 보이는 유형 세계의 신비함은 눈으로 보이지 않은 무형 세계, 곧 혼과 영의 세계의 신비함과 비교가 안 된다.

<2013년 7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극과 극에서 산다.

2. 사람은 이쪽과 저쪽, ‘양극’ 중에서 어느 한 극에서 살아간다.

3. 열심히 행하는 자는 극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열심의 극’에서 살고, 게으른 자는 극적으로 게을러서 ‘게으름의 극’에서 산다.

4. <성자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자는 성자를 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극의 삶을 살고, 어떤 자는 반대편인 세상과 자기를 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극의 삶을 산다.

5. <말씀>도 어떤 자는 100% 배우고 믿는 극에서 살고, 어떤 자는 건성으로 배우고 일부만 믿으면서 건너편 극에서 살아간다.

6. <휴거의 삶>도 어떤 자는 정말 휴거되려고 몸부림치는 극에서 살고, 어떤 자는 건너편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만 듣고 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극에서 살아간다.

7. 사람이 피곤하여 잠을 잘 때는 ‘잠’에 묻혀서 잠자는 시간이 극의 시간이 되어, 이때 마음이 기쁘고 몸이 편하고 좋다.

8.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생활하면 ‘생활’에 묻혀서 이때 마음과 몸이 기쁘고 좋다.

9. 사람은 좋게 살아도, 나쁘게 살아도 ‘극’에 처해 살기에 마음도 몸도 즐거워한다. 고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좋다.”, 혹은 “다 나쁘다.” 하는 식으로 산다. 그러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는 “이것은 나쁘다. 저것은 좋다.” 구분한다.

10. 사람이 ‘육적인 극’에 처해서 육만을 위해 사는 자는 그 극에서 마음 즐거워하며 몸도 편하게 살아간다. 그러다가 결국 육에서 끝난다. 그러니 그 영은 자기 육의 행위대로 형벌을 면치 못한다. ‘육적인 극’에서 산 자는 실패의 삶을 산 자다.

11. ‘영적인 극’에서 자기 혼과 영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산 자는 그 극에서 마음 즐거워하고 몸도 기뻐하며 산다. 그 영도 자기 육의 행위대로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 ‘영적인 극’에서 산 자는 성공의 삶을 산 자다.

12. 사람은 육의 세상에서 육이 극적으로 행하고 산 대로 그 영이 영의 세상에서 그대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천국 극’, 혹은 ‘지옥 극’에서 살게 된다.

13. 고로 세상에서 육이 살 동안에 성자의 편에서 성자와 그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사랑하면서, 그 삶의 극에서 살아야 된다.

14. 섭리사에서 잘 살아가더라도 한 번 리듬이 깨지면, 육적인 극으로 살게 된다. 육적인 극도 그 나름대로 먹고 즐기면서 마음이 기쁘고 육신도 좋다. 그래서 다시 영적인 극으로 올라오기가 힘들다.

15. 그러다가 ‘육적인 극의 삶’이 지속되면, 열심히 하던 자들도 결국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극에서 살아가면서 “섭리사를 나와도 편하고 좋다. 더 즐겁다.” 한다.
16. ‘육’은 즐겁지만, ‘영’이 사망의 극에서 살게 되니 곤고하다. 그 곤고함이 결국 육신에게 전달되어 오고, 영적인 희망이 없어지고, 결국 파멸의 극의 세계의 주인이 되고 만다.
17. 세상에서 ‘육적인 극’에서 살던 자가 거기서 못 벗어나면, 그 영이 영계에 가서도 극적인 고통의 세계 지옥에서 살게 된다. 세상에서 ‘성자의 극의 세계’에서 살던 자들은 그 영이 극적인 기쁨과 사랑의 세계 천국에서 살게 된다.
18. 인생들은 지금 양단의 극 중에서 꼭 어느 한쪽에서 살고 있다.
19. 아직 신앙이 약한 자들과 휴거되지 않은 자들은 ‘육적인 극’으로 가서 거기에 처해 산다. 그러다가 신앙이 좋을 때는 ‘영적인 극’에 와서 산다.
20. ‘육적인 극’과 ‘영적인 극’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삶은 휴거되지 않은 자들의 삶이다.
21. 휴거 100선만 넘어가도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된다. 영 중심의 삶을 사니, 그 기준을 잊지 않고 육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22. 섭리사에 온 지 10년, 20년, 30년 됐어도 ‘육적인 극의 삶’과 ‘영적인 극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아직 휴거 100선에 오르지 못한 자로서 그 영이 휴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3. 휴거 100선을 넘어가면 1차 휴거라도 ‘육적인 극의 삶’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아직 100선을 안 넘어 휴거되지 못했기에 ‘육적인 극의 삶’과 ‘영적인 극의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24. 사람은 극적으로 육적으로 살아도 즐겁고, 극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도 즐겁다. 그러니 ‘영적인 극의 삶’을 살다가도 금방 ‘육적인 극의 삶’을 살면서 잘 지내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영적인 극의 삶’을 떠났으니, 그 혼과 영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속히 ‘영적인 극의 삶’으로 돌아와야 그 영이 살게 된다.
25. 섭리사에서 살면서 ‘영적인 극의 삶’을 살다가도 ‘육적인 극의 삶’으로 가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자들은 휴거되지 않은 자들이다.
26. ‘영적인 극의 삶’을 지속해야 된다. 그래야 ‘휴거의 영’이 된다.

<2013년 7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27. 사람은 반드시 양극 중에 어느 한편에서 살고 있다.
28. ‘사랑’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영에 속하여 마음과 혼과 영의 사랑의 삶을 극적으로 사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육에 속한 하체의 사랑의 삶을 극적으로 사는 자들도 있다.
29. 섭리인들 중에서도 ‘섭리 삶의 극’에서 살지 않는 자는 ‘세상 삶의 극’에서 살고 있다.
30. 산토끼는 겨울철에 ‘양달 극’ 아니면, ‘응달 극’ 둘 중의 한 극에서 산다. 양달에 없으면 응달에 있다.
31. 섭리인들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종일 마음과 생각이 ‘육에 속한 극’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영에 속한 극’에서 산다.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극적으로 살아라!

32. 섭리사에서 살아도 성자와 사랑 일체 되어 가까이 살지 않으면, 건너편의 성자와 떨어진 극에서 살고 있다.
33.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극’에서 사는 자들이 있고, 기도에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건너편에서 ‘겉돌기 극’에서 사는 자들이 있다.
34.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세게 먹고, ‘성자가 계신 극’에서 살아라. 몸부림과 인내와 열심으로 산을 오르듯 하여라. 그래야 육도 영도 희망이 있다.
35. ‘<영적 극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적 극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모두 ‘마음과 생각’에서 좌우된다.
36. 세상을 보나, 섭리사를 보나 사람들은 극을 질주하며 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37. 구시대인들은 <구시대 극>에서 살아가고, 새 시대 섭리인들은 <새 <새 시대 극>에서 살아가고 있다.
38. ‘육적인 극의 삶’을 살던 자가 건너편 다른 극인 ‘영적인 극의 삶’으로 오려면, 두 배 이상 수고하고 노력하며 고생 돼도 행해야 된다.
39. 섭리사에 와서도 ‘영적인 극’에서 살던 자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를 중시하다가 신앙이 파선되어 결국 ‘육적인 극’으로 가서 살게 된다.
40. <휴거 때>는 ‘구시대의 끝’이다. 고로 이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때이며, ‘선’ 역시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때다.
41. 온 세상을 보면, 모르는 자들은 ‘무지의 극’에서 살아간다. 아는 자들은 ‘아는 극’에서 살아간다. / ‘악의 극’에서 살아가고, 혹은 ‘선의 극’에서 기뻐하며 살아간다. /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며 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혹은 전능자를 믿고 사랑하며 극적인 삶을 살아간다. / 시대 말씀을 부인하며 극적으로 살아가고, 혹은 시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극적으로 살아간다. / 성자와 그 육을 사랑하는 극에서 살아가고, 혹은 성자와 그 육을 외면하는 극에서 살아간다. /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 세계 중의 하나의 극에서 각자 살아가고 있다.
42.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되었고, 육적인 시대가 되었다. 세상에 빠져서 극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구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그 육을 받아들여 극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100명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야 된다.
43. 생명의 대(代)가 끊어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만 남게 된다. 구원자가 매일 조건을 세워 간구하니, 극적으로 전도하면 올 자들이 온다.
44. 극적으로 해야 성자 안에서 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45. 극적으로 해야 극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2013년 7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46. 인간의 뇌는 둘 중의 하나로 작동된다. ‘육의 극’, 아니면 ‘영의 극’으로 흐른다. 마음도 그러하다.
47.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삶의 극에서 산다.
48. 믿고 따라와도 극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행하면서 사는 자가 있고, 건너편 극에서 보편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있다.

49. 항상 하늘 사랑의 극에서 살아라.

50. 사람은 '육의 극 세계'나, '영의 극 세계'나 어느 쪽으로 가든지, 거기에 빠져서 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 육에 속한 자들은 육의 극에 처해 살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를 떠나기 싫어한다. 고로 시대 말씀을 증거하고 영원한 세계를 말해 주며, 그들이 사는 곳보다도 더 극적으로 좋은 세계가 있다고 전해 주며 생명을 이끌어 와야 된다.

51. '육적인 극의 세계'에 있다가 '영적인 극의 세계인 섭리사'에 오면, 처음에는 체질도, 마음도, 생각도 안 맞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여 표적을 일으켜 줘야 된다.

52. 섭리사 체질이 되고 섭리사 마음이 되어, 삶의 극적인 단계를 넘어서야... 그제야 육적인 세상보다 하나님의 섭리사가 더 좋은 것을 알고 스스로 행하게 된다.

53. 섭리사에서 극적으로 살다가 자기 책임을 못 하고, 자기 때에 열심히 못 하면 육적인 극의 삶으로 가게 된다. 그러다가 거기서 마음도, 생각도, 몸도 극적으로 육적으로 살게 되어 육적인 이상(理想)을 느끼며 살게 된다. 그러면 다시 섭리사에 돌아오기 힘들다. 그 육과 영이 사망의 삶을 즐겨 사는 극적 사람이 된다.

54. 육적인 극의 세계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세계다. 육적인 세계에서 극적인 삶을 다 겪고 탄식할 때에야 다시 섭리사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오기가 쉽지 않다.

55. 매일 매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극적인 삶을 살아야,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성자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않게 된다.

56. 네 마음에 성자와 분체를 꼭 품고 극적으로 살아라. 성자와 분체를 놓으면, 희망도 휴거도 사라진다.

57. 뿌리 깊은 온전한 나무는 뽑히지 않는다.

58. 자기를 구원할 자를 절대 깨닫고 그와 하나 돼라. 그래야 성자와 하나 된다.

59. 성자의 주관권 안에서 극적으로 살아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극에서 살아라.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극에서 살아라.

60. 지금은 휴거 때이니, 휴거의 삶의 극에서 살아라.

61. 휴거도 차원을 높이면서 하는 것이다.

62. 휴거 100선, 200선, 300선은 각각 코스가 다르다. 먼저 휴거 100선에 오르고, 그다음에 200선에 오르고, 그다음에 질서대로 300선에 오르는 것이다.

63. 100선과 200선은 코스가 다르다. 그 코스는 '그에 해당되는 삶'으로 오르는 것이다. 먼저 휴거의 첫 번째 산인 100선에 올라 휴거 명단에 기록돼야 한다. 그다음에 휴거 200선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야 200선에 오르게 된다. 200선에 올라야 성자께서 휴거 300선에 오를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코치도 해 주고, 기도하면 그에 해당되는 대로 무엇을 하라고 깨닫게 해 준다.

64. 항상 평소 삶에서 절대 <성자 안에서의 극의 삶>을 벗어나지 말아라. 작은 것을 벗어나다가 점점 큰 것도 벗어나게 되어, 나중에는 섭리사를 벗어나게 되고 결국 천국을 잃게 된다.

65.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중에서 다섯 처녀는 사랑의 기름을 예비하고 '사랑 충만한 극'에서 살았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사랑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미련한 극'에서 살았다.

66. 말씀을 행한 자는 산 자로서 '생명의 극'에서 살고,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로서 '죽음의 극'에서 산 자다.
67. 아담과 하와는 '이성의 극'에서 살았다.
68. 가인은 '악의 극'에서 살았고, 아벨은 '선의 극'에서 살았다.
69. 예수님 때 십자가 위의 우측 강도는 '주의 편인 구원의 극'에서 말했고, 그 영도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 한편 좌측 강도는 '주의 반대편인 불신의 극'에서 말했고, 그 영도 예수님 반대편으로 갔다.
70. 모르는 자들은 육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믿고 '무지의 극'에서 살고, 아는 자들은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고 영만 천국으로 휴거된다고 믿고 '진리의 극'에서 살고 있다.
71. 예수님 때 가롯 유다는 '불신의 극'에서 살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종의 극'에서 살았다. 고로 가롯 유다의 영은 2000년 동안 지옥 불속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메시아를 불신한 것이 그리도 큰 죄다.
72. 이 시대는 '성자 본체와 본체'에 대해서 밝힌 극적인 때다. 성자를 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후회가 없다. 사랑도, 행실도, 순종도 있는 대로 다 투자해라. 그렇게 해도 지금은 <휴거 때>이니 후회 없다.
73. '선의 극'에서 살든지, '악의 극'에서 살든지 어디에서 살아도 나름대로 좋고 기쁘다. 그러나 '선의 극'이든, '악의 극'이든 한 번 가면 면역이 되어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살게 된다. 그러나 결국에는 심판으로 선악이 분리되고 끝난다. '성자의 섭리의 극'에서 딱 붙어살아라.

<2013년 7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무(無)는 무(無)다. 씨를 뿌리지 않으니, 거둘 것이 없다.
2. '매일 할 일'이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다. 곧 '기회'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 기회를 얻고,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
3. 매일 그 날의 기회다.
4. 기회는 가끔 오지 않는다. '매일' 온다. 기회가 가끔 온다고 생각하니 놓치는 것이다.
5. 매일 할 일은 기회다. 이 기회는 매일 온다.
6. 매일 할 일을 하면 인생의 작은 기회뿐 아니라 큰 기회도 다 놓치지 않는다.
7. 꼭 할 일만 하여라.
8. 그 날의 일이 많으면, 좋은 것만 골라서 해야 된다.
9. <새벽>은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얻고 깨닫고, 성자와 대화하고 교통하는 기회다.
10. 매일 회개는 그 날 지은 죄를 없애는 기회다.
11.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다.
12. 매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다.

13.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14. 행하는 순간부터 기회를 얻고 차지하는 것이다.
15. 기회가 지나갔다고 하지 말고, 매일 기회가 오니 행하여라.
16. 시간이 기회다. 고로 어제 못 했으면, 오늘 해라.
17. 새벽에 못 했으면, 낮에 해라.
18. 성자와 분체와 함께 행하기다. 그래야 육적인 것은 분체를 따라서 행해지고, 영적인 것은 성자를 따라서 행해진다.
19. 시간을 놓쳐 할 일을 못 했으면, 다음 시간에 배로 뛰어라.
20. 정신 차리고 하는 것에 따라서 10년 동안 할 것을 1년 만에 하고, 1년 동안 할 것을 한 달, 혹은 하루 만에 하게 된다.
21.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먼저 영계에 들어가야 혼과 영도 영계에 들어간다.
22. 늦었다고 안 가면, 아예 못 간다.
23. 늦었어도 화장실 가듯 가라. 행해라!
24. 늦었다고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 간다. 늦었으면 조금만 먹더라도, 먹고 가야 갈 수 있다.
25. 1시간 기도할 것인데 시간을 뺏겨서 기도할 시간이 10분 남았으면, 10분이라도 기도해라. 가면서 해라.
26. 정신을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마음을 놀리지 말아라.
27. 정신으로 하는 일은 빛보다 수억만 배 빠르다. 늦어도 정신 차리면 한다.
28. 육으로 할 일을 놓쳤다고 해서 마음·정신·생각과 혼으로 할 일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육으로 할 일과 마음·정신·생각과 혼으로 하는 일이 다르다.
29. 영적인 일, 성자와 대화하고 교통하는 일은 마음·정신·생각과 혼으로 하는 일이다. 육에 속한 일은 육으로 하는 일이다.
30. 육적인 일을 정신적, 영적인 일로 보고 안 하면, 아예 기회를 놓친다.
31. 육적인 일은 못 했어도 정신적으로 하는 일은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다.
32. 육적인 일은 육을 가지고 해야 하니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고로 시간을 뺏기면 못 한다. 그러나 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은 짧은 시간만 있어도 할 수 있다.
33.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충분하다.
34. 정신 차리는 대로 그 강도와 빠르기가 좌우된다.

35. 1차원 욕으로 행하기, 2차원 정신으로 행하기, 3차원 혼으로 행하기, 4차원 영으로 행하기다. 각각 강도와 빠르기가 다르다.
36. 정신 차리고 하는 대로 속도는 더 빨라진다.
37. 시를 쓰거나, 잠언을 쓰거나, 계시를 받는 일은 모두 정신적 혼적으로 받는 일이다. 성자가 역사하시지만, 받는 자의 '정신 강도'의 차원에 따라서 받는다. 자기가 정신 차리고 정신의 강도를 높여야 깊은 것을 받는다.
38. 욕신도 일을 할 때 '정신의 강도'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한다. 무거운 것을 들 때, 자기가 힘을 주는 대로 그 강도에 따라 들기도 하고, 못 들기도 한다.
39. '욕의 강도'는 자기가 힘을 쓰는 대로, 힘을 주는 대로 강해진다. '정신의 강도'는 마음·정신·생각을 일도 하고 집중하는 만큼 강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자기 자체적인 마음·정신·생각의 차원이 점점 높아져서 영적인 세계로 가게 되고, 거기서 성자와 일체 되면 그때 신의 정신이 되어 행하게 된다.
40. 욕적 기회, 정신적 기회, 혼적 기회, 영적 기회가 매일 오니 낙심하지 말고 주와 같이 행하여라. 그래야 전능자 성자와 같이 행하게 된다.
41. 정신 차리고 행하면 한 달, 혹은 1년 동안 못 한 것도 즉시 행하게 된다.
42. 정신이 빛나게 행하여라.
43. 인생은 정신 값이다.
44. 겉인 욕은 빛나는데, 속인 정신이 빛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45. 정신이 무너지면 바닥난다.
46. 아무것도 없어도 정신이 살아 있으면 금방 쌓아 모은다.
47. 정신의 할아버지는 혼이다. 혼의 할아버지는 영이다.
48. 욕의 왕은 정신이다. 정신의 왕은 혼이다. 혼의 왕은 영이다. 영의 왕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49. 정신계, 혼계, 영계의 차원은 무한하다.
50. 욕계는 해변가와 같고, 혼계와 영계는 바닷속과 같다.
51. 욕계만 위해서 사는 자는 영계에서 그 영이 할 일이 없다.
52. 욕계만 위해서 사는 자는 영계에서 그 영이 희망이 없어서 한탄한다.
53. 욕으로 잡지 말고 정신으로 잡아라! 그러면 잡힌다.
54. 일도 욕으로 잡으려면 안 잡힌다. 정신으로 잡아라! '정신'은 동물의 이빨과 같다.
55. 정신을 놓으면 맨손이다!
56. '욕'으로는 한 시간이 있어도 못 한 일을 '정신'으로는 1분 만에 했다. 그렇게 행한 일로 미래를 잡았다!

57. 자기 정신은 불쏘시개다. 성자의 정신은 통나무다.

58. 정신이 썩은 자는 썩은 짓만 한다.

59. 네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보아라. 네 정신이 나쁜 생각을 하면 성자를 부르면서 이르고, 자기도 자신을 꾸짖고 다스려라.

60. 정신 때문에 그 아까운 청춘과 인생들을 그냥 썩힌다.

<2013년 7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개인·가정·민족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멸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는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 때문에 공의롭게 하려고 하심보다, 악을 행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근본의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 주셔도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롭지 아니하여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자기가 행한 길로 가서 자기 행위대로 스스로 멸망을 받게 두신다.

2.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 자보다, 자기 무지와 악한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받고 죽는 자가 더 많다.

3. 각종 악과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하게 산 자들은 죄악이 관영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4.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의인들과 그 민족이 악인들로 인해 망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하룻저녁에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몰살시키듯 하신다.

5.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모두 자기 욕의 행위로 인해서 간다.

6. 하나님이 “너는 지옥에 가라.” 이런 식으로 지옥 선고를 하지 않으신다. 자기 욕의 행위의 결과로 그 영이 날마다 지옥에 가고 있다.

7. 영이 하나님의 지옥 심판을 받는 원인은 그 욕의 악한 행위 때문이다.

8. 하나님을 믿고 진실로 주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의로우면, 절대 지옥에 갈 수 없다.

9. 자기 욕의 행위가 지옥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돌이켜 나오기가 거의 어렵다. 지옥으로 기울기는 쉬워도, 다시 천국으로 기우는 삶은 매우 어렵다.

10. 욕이 아무렇게나 살면, 그 영이 쉽게 지옥으로 기운다. 그러나 자기 욕이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이 천국으로 기울지 않는다.

11. 지옥 쪽으로 살던 체질을 천국 쪽으로 기울여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라. 평소 자기의 사고나 버릇이나 습관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잘 안 고쳐진다. 그러니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욕적인 것을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기는 얼마나 어렵겠느냐.

12. 자기 습관과 버릇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천국 가기 어렵다. 주를 믿어도 자기 버릇을 고쳐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죄짓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며 버릇이다.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다. 평소에 습관이 된 것을 고쳐야 죄짓는 것도 고쳐진다.

13. 혈기와 분노의 성격을 고치는 것만큼이나 천국에 가기 어렵다. 혈기와 분노의 성격을 없애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

국 가기는 어렵다. 혈기와 분노도 죄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 혈기와 분노의 성격도 습관이 된 것이다. 고로 습관을 고쳐야 된다.

14. 자기 습관, 자기 성격, 혈기, 분노를 안 고친 자들의 영은 구원받지 못한다. 욕은 과일나무이며, 영은 열매다. 욕의 성격을 안 고쳤는데, 그 열매인 영이 좋게 변화될 리가 없다. 예수님도 욕신을 가지고 영혼의 실상을 감정하시어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셨다.

15. 행악자들 100명이 있다 하자. 이들이 하나님과 주를 믿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도 80% 이상은 자기 성격을 못 고친다. 10%라도 고치면 엄청난 것이다.

16. 자기 인격 위에 신앙이 들어간다. 고로 가인의 성격 먼저 빼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17.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마음이 다 녹아서 눈까지 빼 주듯 하면서 살아도 그 혈기와 분노와 성격까지는 못 고친다. 사람은 거의 자기 성격과 습관을 못 고치고 그냥 살다가 죽는다.

18. 그렇게도 미쳐서 사랑하는 자와 살아도 자기 성격과 습관을 못 고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겠느냐.

19.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성격과 마음을 못 고치면, 좋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성격을 못 고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로 그 욕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다시 욕성으로 돌아가고 만다. / 사도 바울도 성격이 불같아서 의를 행하면 좋으니 의를 행하면서 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성격 때문에 평생 스스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다. 고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자기 욕성을 죽이며 살았다. 자기 성격과 습관 때문이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인한 죄를 안 짓고, 억울함과 악한 말들을 다 참고 견디면서 주를 따라 살다가 구원을 얻었다.

20. 신앙생활을 해도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고쳐야 죄를 안 짓는데, 그것을 못 고쳐서 구원을 못 받는다.

21. 하늘나라는 죄가 있으면 못 간다. 죄는 마치 전염병과 같다. 전염병에 걸린 자가 건강한 자에게 갈 수 없듯이, 죄 있는 자는 천국의 삼위일체 앞에 못 간다.

22. ‘의’와 ‘선’과 ‘하늘 사랑’으로 꼭 찬 자의 영만 천국에 간다.

23. 악인들이 자기가 악을 행했던 것을 고치고 선의 사람이 되기는 거의 어렵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의 악한 과거를 두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자기 성격을 청산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악한 자들이 사도 바울같이 주를 만나기 전의 마음과 성격을 개조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4.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다. 메시아를 믿으라는 것은 근본이다. 믿되 온전히 믿고, 말씀을 다 순종하고 행함으로 자기 영이 선한 영으로 변화돼야 구원받는다.

25. 온전해야 천국에 간다. 그 나머지는 그 행위대로 천국의 반대편 세계로 가게 된다.

26. 세상에는 비율적으로 부자가 많지 않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많지 않다.

27. 세상에 비율적으로 성공한 자가 많지 않듯이,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 성공한 자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물어봐라. 신앙생활도 그만큼은 해야 구원에 성공한다.

28. 세상의 부자가 그 경로를 거쳐야 부자가 되고, 세상의 성공자가 그 경로를 거쳐야 성공자가 되듯, 신앙인들도 신앙의 그 경로를 거쳐야 구원받는다. 부자만 그 경로를 거쳤기에 알고, 성공자만 그 경로를 거쳤기에 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다. 그 경로를 기어 오고 걸어오고 뛰어온 자만이 안다.

29. 성공한 자들은 그에 따른 수고와 고통과 역경을 겪었다. 신앙인들도 구원받기 위해 행할 때, 그에 따른 수고와 고통과 역경의 경로를 그 차원만큼 겪어야 된다.

30. 신앙의 성공을 하고 나니, 다른 것도 그만큼 하게 됐다. 고로 모두 성공하게 됐다.

31. 세상에서 형제들을 악하게 대하고 해하면서 막 행하던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마치 가난한 자가 노력해서 중산층의 삶을 사는 것만큼 힘들다. 자기 성격과 혈기와 습관과 버릇을 고치고서 주를 믿는 것이 중산층이 부자가 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10년, 20년, 30년은 노력해야 된다. / “남이 부자가 됐으니, 나도 부자가 되겠다!” 하고, 마음이 감동되어 행해도 금방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고 행하면서 한 세월이 가야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32. 자기 성격과 혈기와 습관과 버릇을 고치기 어려우면, 최고의 다른 방법이 있다.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행한 일을 두고, 매일 수시로 주 앞에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혈액 투석을 통해 매일 피를 갈아 주는 격이다. 또한 모래땅에 심은 나무에 매일 물을 주는 격이다. 고로 매일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인해 지은 죄를 회개하면, 겨우 살아간다.

33. 매일 혈기와 분노를 낸 것을 회개하고, 매일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34. ‘회개’로 자기 성격과 습관으로 행한 일을 막고 해소하는 것이다.

35.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고친 자는... 마치 모래땅에 심은 자기라는 나무를 옥토 땅에 옮겨 심은 것과 같아서 물을 주는 것에 신경 쓰지 않듯이, 혈기와 분노와 습관과 성격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36.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고친 자는... 평생 자기가 다니는 길들을 모두 지름길로 덮고 만들어서 사는 자같이 편하다.

37. 사탄은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타고 역사한다. 고로 자기가 힘을 못 쓰고 당한다.

38. 제 버릇은 남에게 못 주니, 고쳐라!

39.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는 개를 줘도 싫다고 하며 물고 쫓는다. 그만큼 그것이 범사에 해를 주기 때문이다.

40.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는 ‘말’로 나오고, ‘몸’으로 나와서 행한다. 고로 옆에서 보고 성자에게 보고하고 선생에게 보고하고, 싫다고 하면서 피한다. 모두 해를 주니까 보고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옆에 해를 주니, 그런 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신부권에는 A급에서 B급, C급, D급, E급... Z급까지 있으니, 고치지 않으면 계속 위치를 밑으로 이동시킨다.

41.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 사고를 고칠수록 육도 혼도 영도 차원 높이 올라가서 눈부시게 빛나게 된다.

42. 성격이 더러우면 같이 못 산다. 차라리 성격 좋은 짐승이 낫다.

43. 자기 성격과 습관과 버릇을 자기는 못 보니, 고치려 하지 않는다. 고로 천국에 갈 자인데 지옥에 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44. 자기 성격, 습관, 버릇, 혈기를 고치면... 그로 인한 축복이 매일 온다.

45. 성자와 같은 성품을 가지면 매일 성자와 통하고, 사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 매일 사탄과 통하고 악한 자와 통한다. 뻔하다. 뻔해!

46. 악인들의 행위는 안 봐도 뻔하다. 그들은 늘 악하고 야비한 생각을 한다. 하나님과 성자가 보시고, 그 행위대로 계획적인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다.

<2013년 7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음식을 대접하는 자에게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해야 대접하는 자도 기뻐 좋아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어 지금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 때 감사해야 된다. 진행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진행 중인 때가 감사의 때다.
2. 음식을 대접한 자에게 3년 후에 감사하다고 하면, “나는 기억도 안 나.” 한다.
3. 사랑해 줄 때 사랑의 감사를 해라. 진행 중에 감사하다고 하고, 진행 중에 대화해야 된다.
4.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과 혼과 영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인류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뒤통까지 감사드려야 된다. /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러하다. 감사는 주는 자가 줄 때, 네가 대접받을 때 하는 것이다. 대접받을 때, 줄 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기간이다.” 하신다. 답답하니 말씀하신다.
5. 줄 때 받고 감사다.
6. 과정 중에 감사다.
7. 진행 중에 감사다.
8. 음식을 대접받을 때 감사다.
9. 엄마가 젖을 줄 때, 아기는 엄마를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10.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주시고,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또 영의 세계를 만들어 주시고, 혼체와 영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지금 진행 중에 감사하는 것이다. 영계에 가서 육도 없는데, 그때 감사할 수 없다.
11. 때를 잃은 감사는 달갑지 않은 감사다.
12. 음식도 제때 먹어야 제맛이 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해 주실 때 감사해야 제맛이다.
13. 줄 때 거기서 열의 하나는 감사해야 된다. 그때 못 하면, 다 쓰고 나서는 더 못 하게 된다.
14. 있을 때 감사다.
15. 감사하지 않는 자는 자기 수고의 대가만 받을 자다.
16. 자기 수고의 대가만 알고 받는 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17.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보다 더 주셨기에 감사해야 된다.
18. 억지로 인색하게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19. 먹고 남아서 감사하는 것은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게 해 주신 것과,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여라.
21. 준 자가 얼마나 애써서 줬는지, 받은 자가 준 자의 그 심정을 알고서 감사하면서 써야 가치 있게 쓴다.
22. 받은 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받은 것으로 인해 준 자를 사귀고 그에게 고마워하면서 지내야 된다.
23. 진실한 감사는 감동과 기쁨이 스며드는 감사다.
24. 줄 때 감사하지 못하면, 못 하게 된다.
25. 받을 때, 받으면서 먹으면서 쓰면서 느낀다. 그런데 받을 때도 준 자에게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제 감사하겠느냐.
26. 준 것을 쓸 때마다 감사하여라. 그때 못 하면, 나중에는 감사한 것을 못 느껴서 못 하게 된다. 받았을 때, 쓸 때, 느낄 때 감사해라.
27. ‘나는 응당히 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며 쓰는 자는 감사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28. 천지 만물과 지구와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응당히 하나님이 만들어 줘야 하기에 받은 인생들이나.
29. 하나님이 사랑해서 해 준 것이다. 그러니 값은 사랑으로 받고 쓰면서, 그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
30.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것이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사랑해서 준 것도 있다. 그러니 모두 뜨겁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31. 감사하고 쓰니, 10배 더 귀히 쓰게 됐다.
32. 어떤 형제가 무엇을 줬으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준 거야. 그러니 너에게는 감사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 형제가 준 것이다. 고로 형제에게도 감사해야 된다.
33.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힘들어했다. 이때 한 형제가 채무자의 고통의 심정을 알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 고통을 없애 주려고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 그런데 후에 소문이 들리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당히 받을 것을 받았어.” 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했다. 그 후로는 그 사람이 빚을 저 고통을 받아도 절대 대신 갚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감동시켜 봐라.’ 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네게 고마워하지 않거든, 앞으로는 주지 마.” 하셨다. 이럴 때는 세 번 웃어야 된다^^ 킁킁.
34. 하나님께 감사, 주는 형제에게도 감사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95%를 주시고, 형제는 심부름만 할 때가 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형제가 주는 때도 있다. 분별하고 감사다.
35.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감사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받은 것은 거의 감사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한 생각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36. 감사할 때가 지난 후에, 그것도 고통당할 때, 그제야 지난날을 생각하며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37. ‘마음’은 물에 빠지지 않는다. ‘영’은 물 위를 걸어 다닌다.
38. 어떤 영은 물 위를 걸어 다니다가도 물에 빠지기도 한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함정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기도 한다.

39. 기도하지 않는 자의 영은 성자와의 대화가 끊어져서 영의 급수가 떨어지고 차원이 떨어져서 성자와 멀리 떨어져 있다. 성자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별로야. 미련해.” 하신다.

40.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야 성자를 가까이 대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성자와 딱 붙어서 산다. 미련할수록 세상에 붙어서 산다.

<2013년 7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인 침을 받은 자는 해하지 말아라.

2. ‘인’은 그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으로서 삼위가 보낸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이다.

3. 고로 ‘인 맞은 자’란,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한 자를 말한다.

4. <구약시대의 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곧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5. <신약시대의 인>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곧 ‘신약말씀’이다.

6. <이 시대의 인>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 성자 본체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다. 곧 ‘성약말씀’이다. 이 말씀은 ‘신부의 말씀’이며, ‘재림과 휴거의 말씀’이다. ‘말씀’을 ‘인’으로 비유해서 말한 것이다.

7. 또한 <인>은 ‘자기 표시’를 의미한다.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니, 곧 ‘자기’를 말한다.

8. 또한 <인>은 말씀의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말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난 ‘메시아’를 말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마다 주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믿고 행하면 ‘인 침을 받은 자’로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받아들이고, 그 시대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자다. / 하나님도 심판하여 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축복해 주신다. 고로 사탄도 그를 해하지 못한다. 악한 자들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여 천사가 지켜 주게 하신다.

10. <이 시대의 인>은 ‘성약말씀’이다. 성약말씀은 신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밝히고 이루는 말씀으로서 재림, 휴거, 창조 목적, 죄, 성자 본체, 분체, 영 휴거, 육 휴거, 혼체에 대한 말씀이며, 성자를 최우선권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서 우리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되게 하는 말씀이다.

11.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한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본체를 받아들이는 자다. 고로 그 육과 영이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산다. 고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12. 성자께서 그 육인 본체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지키는 자는 물질의 해를 받고, 이성의 해를 받아 타락되고, 각종 아픔과 고통의 해를 받고, 사망의 세계로 가는 해를 받게 된다.

13. 인 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야 된다. 곧 삼위가 선포하시는 시대 말씀을 100%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100% 알고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야 된다.

14.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했다. 여기서 14만 4천 무리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 시대에 선포되는 성자의 말씀을 ‘성자 본체를 통해서’ 듣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인 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에 들어간다.

15.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그 육으로 삼은 분체, 곧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인’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인 침을 받은 자’로서 ‘14만 4천 무리의 택한 신부’다.
16. 시대 말씀을 100% 믿고 시인하고 행하는 자가 ‘인 침을 받은 자’다.
17.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그가 보낸 자가 성자 분체로서 구원자다. 성자가 그를 통해 전하는 말씀이 ‘시대 말씀’이다.
18. 전능하신 성자가 주신 지구 세상의 유일한 성약말씀, 휴거 말씀, 삼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행하여라!
1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한다. 곧 세상에 구원자를 택하여 그를 통해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그 영이 하늘나라에 오게 한다.
20. ‘말씀’이 없으면, 마치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식물들이 말라 죽고 동물들이 기갈로 죽듯이, 영혼도 성장이 멈추고 사망권에 묻히게 된다.
21. 선지자 때는 선지자급 말씀을 주고, 메시아 때는 메시아급 말씀을 주어, 그 시대에 정한 뜻을 편다.
22. <구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종급 시대 말씀’을 주었고, <신약 때>는 예수를 통해서 ‘자녀급 시대 말씀’을 주었다.
23. 성자의 말씀을 받는 구원자가 살아 있을 때만 말씀이 끊기지 않으니, 신약 때는 예수가 살아 있었던 3년 동안 ‘자녀급 시대 말씀’을 주었다.
24. 이 시대는 신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는 <성약 때>다. 이 시대에는 지구 창조 이래, 종교 역사 이래 최고로 차원 높은 ‘신부급 시대 말씀’을 주고 있다.
25. 성약말씀은 인간의 육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말씀이며, 인간의 육과 영을 휴거시키는 말씀이며, 인간의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천국의 성약성에 오르게 하는 말씀이다.
26.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서 주는 ‘인 치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휴거된다.

<2013년 7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27. ‘이마에 인을 친다.’ 했다. <이마>는 ‘마음, 정신, 사상’을 말한다. 곧 ‘뇌’다. <인>은 ‘시대 말씀’을 말한다. 고로 인은 ‘뇌’에다 준다. 곧 ‘뇌에 시대 말씀을 준다.’ 함이다. ‘시대 말씀으로 정신과 사상을 굳세게 해 준다.’ 함이다.
28. 뇌에 시대 말씀이 꼭 차 있어야 된다.
29. 악평하는 말을 듣거나 악평하는 글을 보거든, 시대 말씀으로 악을 불신하고, 즉시 사탄이 악한 사람을 통해 행한다고 생각하고 100% 불신하여라. 그래야 인 침을 받은 자로서 해를 받지 않는다.
30. 성자가 보낸 자를 악평하는 것은 성자를 악평하는 것이다. 고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육과 영이 사망의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이 영원히 사망에 묻히게 된다.
31.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인 침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시대의 해를 면치 못한다.

32. 이 시대 성자의 말씀을 비진리와 그릇된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시대의 해를 면치 못한다.
33. ‘시대 말씀’으로 불렸는데, ‘말씀’을 불신하고 나간 자들 역시 심판자 하나님도, 사탄도 행한 대로 심판과 분노를 쏟아 물질의 해와 환경의 해 등 각종 해됨을 면치 못한다.
34. ‘말씀’은 전쟁터의 늦 성벽과 같다. 전쟁터의 늦 성벽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어막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성자다. 그러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자를 감히 사탄과 악인들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35. 섭리역사가 휴거 역사다. 섭리역사는 구약과 신약에 이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마지막 뜻을 펴는 휴거 역사다.
36.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자는 전쟁터에서 갑옷을 받고도 입지 않는 자와 같아서 화살이 심장을 향해 날아오면 화살이 심장에 꽂혀 죽는다.
37. 말씀을 어디서나 시인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그래야 듣는 자가 성자가 말씀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분체를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시대 인 침을 받게 된다.
38. 시대 말씀을 전해야 생명을 구원한다. 말씀을 숨기면 전도가 안 되고 힘이 없다.
39. (성자) 분체가 누구냐? 기도해 보아라. 나 성자가 그를 가르쳐 주리라.
4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100% 거짓 없이 믿어라. 그래야 말씀을 행하게 된다. 말씀으로 힘을 받는다!
41. 여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여자는 ‘금단의 열매’로 판단해야 확실하다.
42. 메시아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메시아는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판단한다. 고로 메시아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전체 말씀’을 가지고 온다. 그 말씀대로 절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로 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
43. 성자가 시대 말씀을 준다. 고로 메시아는 ‘말씀과 같이’ 온다.
44.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을 아는 데서 ‘성자’를 알고, ‘분체’를 아는 것이 시작된다.
45. <말씀>을 보고 ‘사명’을 알고, ‘시대’를 안다. 모세는 종급인 율법 말씀을 가지고 왔고, 예수는 종에서 아들로 살리는 신약말씀을 가지고 왔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인생들의 육과 영을 신부로 부활시키고 휴거시켜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는 ‘성약 신부 말씀’을 가지고 온다.

<2013년 7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해도 달도 별도 멀리서 볼 때는 ‘원’인데, 가 보면 ‘평지’다. 지구는 가까이 볼 때는 ‘평지’이지만, 실상은 ‘원’이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체는 다르다.
2. 하나님도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다.
3. 인간은 항상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한다.
4.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려면, 인간의 생각을 다 쏟아 버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차원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온다.

5. 썰물일 때 각종 그릇을 갖다 놓고, 밀물이 들어온 후에 바닷가에 가 보면 그릇이 물에 잠겨 있다. / 이와 같이 전지 전능하신 성자가 자기에게 왔다 가셔도 결국 자기 생각만 남아 있지, 성자의 생각은 잠겨서 남아 있지 않다.
6. 자기 그릇, 자기 생각, 자기 차원대로 생각하게 된다.
7. 자기 그릇, 자기 생각, 자기 차원대로 성자의 생각을 받는다.
8. 육의 세계는 제한된 한계의 세계다.
9. 성자에게 구해야 된다. 그 이유는 성자께서 생각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10. 인간 스스로는 항상 난자와 같다. 난자는 절대적으로 정자와 일체 돼야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돼야 무한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역사가 일어난다. 난자가 정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무(無)로 끝난다. 이와 같이 인간이 성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그 육도 영도 사망에 속하여 무(無)로 끝난다.
11. 과일 씨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평생 씨 하나로 끝난다. 그 씨를 심고 가꾸면, 열매를 얻다. 계속 심고 거두면, 그 골짜기가 과수원이 되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역사를 이룬다. 그로 인해 집도 환경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해 놓고 살게 된다.
12. ‘자기’라는 인생의 씨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로 끝난다. 심고 가꾸어 과일나무 번져 가듯 하면 개인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세계로 번져 간다. 또한 ‘자기’라는 인생도 궁궐 속에서 살게 되고, 그 영이 영원한 세계 천국까지 가게 된다.
13.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역사’는 참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한다.
14. 지구촌의 역사도 하나의 생명의 씨로 시작됐다.
15. 누구나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 뜻대로 만들어 줄 사람은 없다. 고로 인간은 자기 목적을 두고 행한다. /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만들 자가 없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할 일을 행하신다.
16.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부심을 말해 준다.
17. 인간도, 전능자도 홀로는 자기 주관권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18. 남자 홀로, 여자 홀로는 그 주관권 안에서만 특성대로 존재하게 된다.
19. 지구도, 달도, 별들도 홀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20. 상대적인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나 이상(理想)을 이루며 존재하게 된다.
21. 신과 인간이 하나 되면, 그 육이 빛나는 태양같이 육의 세계를 살게 되고, 그 영도 영원한 찬란한 세계로 갈 수 있다.
22. 둘이 하나 되면 두 개가 아니다. 둘이 하나 된 힘과 능력으로 행하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얻게 된다. 개성적으로 다양하게 얻으려면 둘이 각각 얻고, 그것을 합해야 된다.
23. 홀로 행하면서 얻으면, 한 면만 얻는다.

24. 둘이 행하면서 얻으면, 양면을 얻는다.

25. 성자와 같이 행하면서 얻으면 성자가 주신 영의 세계의 것을 얻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행함으로 육의 것을 얻는다. 고로 양면을 얻게 된다. (늘 둘이 행해. 성자와 같이, 또 분체와 같이 행해라. ‘일’만 목적하고 행하지 말고, 주와 늘 대화하고 수수 관계를 가지면서 하는 것이다.)

26. 두 사람을 산에 보내어 먹을 것과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라 했다. 두 사람이 각자 개성대로 가지고 왔는데, 모아 놓고 보니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다.

27. 한 사람을 산에 보내어 먹을 것과 생활에 쓸 것을 구해 오라 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모두 한 가지 쪽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왔다.

28.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시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다. 그랬더니 한쪽은 좋은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와 선평했고, 다른 한쪽은 ‘악평’만 메고 돌아와서 악평만 해 댔다.

29. 남자와 여자, 둘을 각각 보내어 섭리세계를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다. 남자는 남자가 보는 세계를 보고 왔고, 여자는 여자가 보는 세계를 보고 와서 보고했다. 둘의 것을 종합하여 듣고 관리하니, 양쪽 모두 잘됐다.

30. (성자) 밥 먹고 제 할 일을 못 한 것이 나으냐. 밥 안 먹고 할 일을 한 것이 나으냐. * <사연> 편지, 서류, 계시 결재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밥 한 술 먹으려고 받아 놓은 것을 먹지도 못했다. 그것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이때 성자에게 받은 잠언이다.

31. (성자) 제시간에 밥 먹고 멀리 갈 차를 못 타고 걸어가는 것이 나으냐. 밥 못 먹고 멀리 가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이 나으냐.

32. (성자) 밥 먹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말씀을 머리에서 잊어버려서 기록하지 못하는 것이 나으냐. 밥 못 먹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말씀을 머리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하는 것이 나으냐.

33. 나도 이러하니, 내 몸이 되어서 뛰는 자도 내 바통을 넘겨받아 잡고 뛰니 그러하겠구나.

34. 하나를 얻으려고 아홉 개를 잃지 말아라.

35. 하나를 잃고 아홉 개를 얻어라.

<2013년 7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낮>에는 ‘육체’, <밤>에는 ‘혼체’다.

2. 육체가 죽으면, 혼체와 영체는 일체 된다.

3. 자기 나쁜 마음·정신·생각을 다 버리면 영원히 없어지고, 안 버리면 영원히 가지고 있게 된다.

4.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가지고 살아라.

5. 오직 성자의 마음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가지고 살아라.

6. 성자의 마음을 받으려면, 성자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자를 절대 사랑하여라. 그러면 변화되고 거듭나서 성자의 마음을 받게 된다.

7. 사랑하는 남녀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말에 순종하고 행하면, 상대의 마음을 받게 된다.
8.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을 받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9.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 마귀의 마음을 받고 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면 삼위일체의 마음을 받고 살게 된다.
10.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자기 육체도 받고, 혼체도 받고, 자기 영체도 받아서 그대로 변화되며 형성된다.
11. 사람의 마음은 마치 물질의 질과 같다. 물질도 질에 따라서 형성되듯이, 사람도 마음 질에 따라서 형성된다.
12. 별이 형성될 때도 먼저는 가스 물질이 융합 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다. / 이와 같이 ‘마음 질’에 따라서 그 육체도 혼체도 영체도 선하게, 혹은 악하게 만들어진다. 자기 마음이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성자의 마음이 되어 행하면, 그 마음이 융합 작용을 하면서 자기 영의 형체를 온전하게 만든다.
13.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일체 될 때, 남자의 XY염색체 질에 따라서 성별이 구분된다. 난자가 정자의 X염색체를 받으면 생명은 여자가 되고, 난자가 정자의 Y염색체를 받으면 생명은 남자가 된다. / 이와 같이 인간이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육체도 혼체도 영체도 형성된다.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존재가 된다 함이다.
14. 곡식들도, 과일들도, 고기들도, 물질들도 어떤 ‘질’이냐에 따라서 크면서 그 형태가 만들어져 결과체가 된다. /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의 질에 따라서 그 혼도 영도 형체가 변화되어 천국의 형체, 낙원의 형체, 선영계 형체, 지옥의 형체로 결정된다. 이는 전능자의 창조 법칙이다.
15. 성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대로 마음·정신·생각의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육이 행하여 그 육의 행위대로 혼과 영의 형체가 만들어진다. 고로 <구약인들>은 구약 말씀을 받아들이고 육신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종급 구원을 이루었고, 그 혼과 영도 종급의 형체를 이루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산다. <신약인들>은 2000년 동안 신약 말씀을 듣고 육신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의 질에 따라서 자녀급 구원을 이루었고, 그 혼과 영도 아들급 형체를 이루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산다. <성약인들>은 성약 신부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육신의 행위대로 그 혼과 영도 신부급 형체를 이루고 살다가 성자를 맞고 천국에 가서 산다.
16.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이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대로 육신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혼체가 형성되고, 영체도 형성된다.
17. 가령 어린아이 세 명을 세워 놓고 앞에서 청년 세 명이 서서 각각 무용을 했다 하자. 그 어린아이는 자기 앞의 청년이 무용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이는 대로 했다. 그 행동의 형체다. /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은 자기가 보고 듣고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대로 형체를 이루게 되어, 그에 따라 육의 행동의 형체를 이루고, 그에 따라 혼도 영도 형체를 이룬다.
18. 마음·정신·생각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형체를 이루어, 그 혼도 영도 그대로 형체를 이루게 된다.
19. 마음·정신·생각을 백지라고 하자. 열두 가지 색깔의 물감 중에서 어떤 색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종이의 색깔 형체가 결정된다. 사람의 혼체와 영체도 자기 마음이 받아들이는 대로 형체가 되어 버린다.
20. 나쁜 것을 받아들였을 때 잘못 받아들인 것을 알고 버리고 회개하여 다시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 마치 옷이 겹겹 더러워진 것을 빨아 버려 깨끗하게 되듯 한다.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그러하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마음·정신·생각을 받아서 ‘육의 행실’도 ‘혼’도 ‘영’도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급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가더라도 자기 혼과 영이 변화되어 형체를 이룬 대로 세상에서 그 위치가 결정되어 그에 해당되는 천국의 위치로 가게 된다. 천국은 마치 나무 나이테같이 수천 층으로 지역의 위치가 구분되어 있다. 그 위치는 상상도 못 하게 쪼개져 구분되어 있다. 세상에서 행한 대로 혼체와 영체가 만들어져서 간다.

22. 세상에서도 한 나라 안에 살면서 자기 급수대로 산다. ‘천국’은 모두 한 문자로 ‘천국’이라 부르지만, ‘최고 천국’에서부터 ‘최하 천국’까지 수만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정신·생각과 육의 행실로 형성된 혼체와 영체가 각각 차원대로 해당되는 위치에 간다. 그 위치의 차원은 마치 해 - 달 - 별같이 또렷하게 차이를 두며 구분되어 있다. (그림)

23. ‘천국급 영계’는 크게 나누면 구약급 선영계 - 신약급 낙원 영계 - 성약급 천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중심해서 각각 그 행위대로 그 안에서 급과 차원이 수만 층으로 존재하고 있다.

24. 세상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차원이 다르게 살아가지만, 영계에서는 차원대로 완벽히 따로 구분되어 살아간다.

25. 영계에서는 쪼개져서 산다.

26. 세상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등 각종 사람들이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마을, 같은 구, 같은 동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해를 주기도 하고, 서로 경계하기도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하면서 산다. 그러나 영계는 자기 혼과 영의 차원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서 완전히 구분되어 살고 있다. / 그러나 지상영계는 혼합된 세계다. 지상영계는 그 형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 형체의 영들이 혼합되어 산다. 지상영계는 지상 육의 세계의 상대적 입장이다.

27. 짐승들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끼리 모여 다니며 산다. 지상영계의 영들도 그러하다.

28. 사람들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같은 종교인들끼리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모여 살면서 그 종교 역사를 펴 나간다. / 하나님이 개성으로 역사하시되, 불법 종교와 우상 종교는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삼위의 사명을 받은 종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으로 뜻을 펴는 종교만 역사를 펴 남아지게 하셨다.

29. 그 시대에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를 통해 전해지는 시대 말씀을 확실히 듣고 받아들이고 행해야...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삼위를 닮게 되어 육이 행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혼체와 영체도 삼위일체를 닮아서 형체를 이루며 땅에서 살다가, 천사장이 나팔 불고 성자 본체가 오시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

<2013년 7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30. 사람은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대로 된다.

31.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융합 작용을 하며 마음먹고 행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육체, 혼체, 영체가 온전히 만들어지기까지다.

32. 자기 육의 때가 있다. 그때 만들기다. 아름다운 남녀도 때가 있다. 젊었을 때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 기른다. 이와 같이 젊은 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받아 행함으로 육도 혼도 영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드는 것이다.

33. 몸도, 마음도, 영도 만드는 대로 그 차원에서 살아가게 된다.

34.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받아도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면 허무하고, 무가치하다. 왜 허무하고 무가치한지, 그리고 얼마나 손해이고 해를 받는지, 그 이유가 너무 많아서 말로 못다 하고 글로 못다 쓴다.

35.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허락하신 최고 급으로 받아야 된다.

36. 천국 쪽으로 구원받았어도 각 영들이 자기 영체가 형성된 대로 수만 층으로 나뉘어져 가기 때문에 최고 급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대해 주지 않으신다.
37. 낮은 차원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좋은 구원을 받은 자들을 모른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낮은 차원에 있는 자들을 잘 안다.
38. 세상에서도 인생들은 천층만층으로 구분되어 살아간다. 영계도 그러하다.
39. 전능자 삼위일체는 결국 악은 정리하여 선에서 쪼개어 영원히 사망으로 보내신다. 그래서 전능자이시다.
40. 육의 세상에서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세계적으로 조직하여 산다. 영의 세상도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귀들이 형체를 이루면서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조직해서 산다. 그러다 때가 되면, 전능자께서 모두 멸하신다. ‘멸한다.’라는 것은 모두 지옥 흑암에 가두어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오게 하시어 하나님이 만드신 육의 세상에서도 영의 세상에서도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전능자이시다.
41. ‘자기’가 세상을 구하라고 삼위가 보내신 구원자의 말을 듣고 악과 싸우면서,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육이 행하면서, 매일 혼체도 영체도 만드는 것이다. 자기 혼체와 영체를 최고 급으로 만들어야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최고 급 천국에서 살게 된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의 영혼이 최고 급 천국에서 살게 된다.
42.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국’은 차원이 천층만층이다. 천국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천국에는 계란 노른자같이 최고 급 천국이 있다. 이곳은 성약역사 성자의 재림 때, 신부로 변화된 영들이 가는 1급 천국이다. 그곳에는 성약역사에서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로 휴거된 영혼들만 살게 된다. 그곳은 모든 것이 보석과 보화로 장식된 세계다. 천국에서 최고 급 천국 외의 나머지 세계는 보화로 장식됐으나 일부만 장식이 되어 있다. 나머지 영계들은 빛나기는 하지만 실제 보화 원석으로 장식되어 있지 않다. 천국의 바깥쪽은 보편성 세계로서 천국의 지방과 같다. 고로 성자와 사랑도 하며 살되, 그 차원이 신부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 세상에서 그 육이 행한 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곳에는 성자도 잘 안 가신다. 마치 임금이 가끔 시골 어느 한 마을에 가듯 가신다.
43.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성자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신부로 변화된 자들의 영만 ‘1급 천국’에서 산다. (그림)
44. 똑같은 여자라도 각각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아이 중에서도 젖 먹는 아이, 젖 떼고 걷는 아이, 유치원생, 초등학생은 그 정신 수준이 각각 다르다. 또 10대 중에서도 15세까지의 정신 수준이 다르고, 20세까지의 정신 수준이 다르다. 그리고 25세까지의 정신 수준, 30세까지의 정신 수준, 40세까지의 정신 수준이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천국도 자기 육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그 영이 형성되어 그 영이 형성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된다. 번두리같이 천국에서도 차원 낮은 곳은 마치 아기들이 놀고 사는 것 같다. 고로 온전히 형성된 영이 가면, 마치 다 큰 자가 아기들을 데리고 노는 것 같다.
45. 성장된 자가 초등학생들이 노는 데 같이 놀고 싶지 않듯이, 온전한 신부로 형성된 영들이 차원 낮은 천국에 가서 살고 싶지 않다.
46. 전능자 하나님은 광범위한 삶으로 영계와 육계를 창조해 놓으셨다.
47.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보낸 자만 안다. 나머지는 소경이라 배워야 눈이 떠진다. 배워도 보낸 자가 가르쳐 주는 것만 ‘머리’로 알게 된다. 보낸 자가 가르쳐 주는 것을 행하는 자만 ‘실체’로 알게 된다.
48. <천국>은 ‘빛의 세계’이고, <지옥>은 ‘어둠의 세계’다. <천국>은 ‘넓은 세계’이고, <지옥>은 ‘좁은 세계’다.

49. 악하게 살다가 잘된 자들을 보면, 악인도 잘된다고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한다. 그것이 아니다. 그들은 악하게 살다가 바울같이 그 찢값으로 형벌을 다 받고, 회심하고 다시 의롭게 살았기에 그같이 잘된 것이다.

<2013년 7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50. 좋은 생각이 있어도 좋고 건강한 육체가 있어야 한다.

51. (그러나) 좋고 건강한 육체도 좋은 생각에서 발생한다.

52. 육체를 잘못 쓰면 건강이 무너져서 좋은 생각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다.

53.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이듯이, ‘좋은 마음·정신·생각과 좋고 건강한 육체’다.

54. ‘이성’을 좋아하여 이성에 빠져 살다가 건강이 무너지고, ‘술 담배’를 좋아하여 술 담배를 하다가 건강이 무너지고, ‘세상 향락’이 좋아서 그것에 빠져 살다가 ‘무리한 행실’로 건강이 무너진다.

55. 좋은 생각, 좋은 행실, 좋은 삶이다.

56. 정신이 건강한 만큼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

57. 마음·정신·생각이 일체 되어 혼체를 형성한다. 혼체가 무너지면, 그 육체도 무너지고, 그 영체까지 영향을 받고 무너진다. 혼체는 육체와 영체의 매개체다.

58. 제대로 알고 다스려라.

59. 나이를 먹으면, 좋은 생각이 많아도 몸이 약해서 생각만큼 행하지 못한다.

60. 마음·정신·생각이 건강한 만큼 육도 건강하여라!

61. 육체는 물질체라서 잘 먹고, 잘 생각하고,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운동을 해 줘야 된다. 육신이 건강하려면 육신을 좋게 움직여 주고 활동시켜 줘야 된다.

62.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혼도, 영도 약해진다.

63. (그러나) 마음·정신·생각이 일체 되어 육신만 건강하게 하면서 육만 신경 쓰면서 살면, 혼체와 영체는 약해진다.

64. 영과 육, 양단 세계의 삶이다.

65.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사랑의 대상체와 같이 살면서 일체 되어야 둘 다 잘 크고 잘된다. 육체와 혼체와 영체의 삶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간다.

66. 사람들은 모를 때는 “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그것을 따먹고 타락되게 만들었지?”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창조 목적을 못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악과를 안 만들면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선악과를 만들게 된 것이다. 선악과는 어떤 나무의 열매와도 전혀 상관없고, 어떤 과일과도 전혀 상관없다.

67. 남자와 여자를 두고 여자는 선악과로, 남자는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68.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약해질 것도, 하나님을 안 믿을 것도, 믿을 것도 이미 다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셨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결실한 생명만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69. (비유를 들어 보자.) 과일나무 주인은 과일나무를 심어 열매가 열리면, 그중에서 땅에 떨어질 열매도 있고, 충실하게 열리는 열매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과일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퇴비하며 과일 농사를 짓는다. 충실한 열매로 인해서 모든 수고의 대가를 얻는다.

70. 이와 같이 하나님은 멸망받을 인생도 있고, 구원받을 인생도 있고, 배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충성자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역사를 펴셨다. 구원받은 자들로 인해 모든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된다.

71.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삼위가 보낸 구원자도 따라오는 자들 중에서 배신하고 나갈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일단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에 그냥 놔둔다. 아예 악인으로 여기고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 /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고 제자로 삼으셨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구원자는 항상 행위대로 대해 준다. 가롯 유다처럼 기회를 줬으나 자기가 책임을 못 하여 가다가 변질되면 배신한다.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킨 것이다.

72. 가롯 유다는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변질된 것이다. 완성되고 온전히 변화됐으면, 변질되지 않는다.

73.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이 완성되면 변질되지 않는다.

74. 자기 목적지를 제대로 아는 자는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

75.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제대로 모르는 자는 자주 넘어진다. 그리고 가다가 아예 변질되어 다시는 돌이키지 못한다. 제대로 아는 자는 다시 돌이킨다.

76. 사탄 유혹과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결정으로 변질된다.

77. 풍년을 아는 농부는 한 해 농사가 잘못됐어도 그 땅을 안 버리고, 그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다.

78. 어떤 자가 바닷물을 가지고 염전을 만들었다. 바닷물이 증발되어 소금이 남기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형성된 소금을 얻는다. 중간에 하다가 말면 바닷물에서 끝나고 만다. 신앙도 그러하다. (그림)

79. ‘끝까지 가야’ 어떤 것이든 태 안의 생명같이 형성된다.

80. 장사하는 자도 많은 물건 중에서 어떤 것은 남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손해 가는 것이 있다. 전체가 다 손해면 못하게 된다. 신앙생활도 어떤 것을 잘못하여 손해를 보고, 어떤 것은 유익을 얻는다. 잘 다스려야 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81. 깨닫고 알면 다스린다.

82. 마음 강도다. 정신 강도다. 생각 강도다. 마음·정신·생각이 약하면 넘어지고 행하지 못하게 된다.

83. 얇은 늪에 빠지면 금방 나오지만, 깊은 늪에 빠지면 금방 못 나온다. 어린아이는 얇은 늪에 빠져도 못 나온다.

84. ‘생활 속 늪’이 있다. 발등만 빠지면 금방 나오지만, 무릎까지 빠지면 힘들게 나오고, 허리까지 빠지면 자꾸 빠져들어 누가 끌어내야 나온다.

85. 마음·정신·생각이 세상에 빠지는 것도 그 깊이가 각각이다. 생활 속 늪에 빠졌을 때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힘과 강도로 나온다.

86. 인생들 모두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즐기며 산다. 그 욕심과 마음·정신·생각이 세상에 빠진 대로

그 영혼은 흑암에서 살고 있다.

87. 빠지지 말고 깨끗이 살아라. 어떤 자는 욕신이 멀쩡해도 삼위와 구원자를 불신하고 배신하고 사니, 그 영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

88. 빠졌다 나왔다 하면, 그만큼 갈 길을 못 간다.

89. 인생은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살아간다.

9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혼체도 영체도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

91.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예술인들이 나름대로 모여서 기뻐하며 자부심으로 살아가나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살면, 구원받고 사는 자들이 마치 가난한 자나, 원시인이나, 불쌍한 자 보듯이 본다.

92. 마음과 혼과 영을 잡고, 삼위일체와 삼위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는 자가 그 시대에 가장 보람된 자들이다. 그들은 영원히 빛나면서 살게 된다.

<2013년 7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벗어나기 삶이다.

2. 현재 차원에서 벗어나야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다.

3. 휴거도 현재 차원에서 벗어나야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다.

4. 현재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벗어나려면, 현재에서 할 것을 꼭 해야 된다.

5. 더 좋은 차원으로 벗어나서 살기다!

6. 삶도 더 좋은 차원으로 벗어나서 살기이고, 신앙도 더 좋은 차원으로 벗어나서 살기다.

7. 섭리사에 살면서도 날마다 더 좋은 차원으로 벗어나서 살기다! 그래야 희망이다. 기쁨이다. 보람이다.

8. 벗어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곳을 떠나 다른 환경으로 가는 방법이 있다. 둘째, 연구하여 그곳을 점점 발달시키고 변화시켜서 삶으로 옛 환경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9. 환경만 벗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도 차원을 높여 벗어나야 된다. 그 방법은 자신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에 따른 행실을 하면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원을 높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10. 선생은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했던 월명동에서 원시인같이 살았다. 동네 청년들은 월명동을 떠나 도시로 나가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 떠나는 방법을 택하여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선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월명동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벗어나는 삶을 살았다. 현재 차원에서 '순리'로 차원을 높여 새롭게 삶으로 고통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택했다.

11. 인생은 저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삶'이다.

12. 사람들의 삶도 그러하다. 지계에 무거운 짐을 싣고 메고 다니다가 손수레를 만들어서 고통의 삶을 벗어났다. 그다음에는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무거운 짐을 싣고 소나 말이나 각종 짐승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게 했다. 그다음에는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것들을 싣고 수백 리, 수천 리까지 이동했다. 지계에서 손수레로, 손수레에서 마차로, 마차에서 차로 벗어났다. 그러다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차도 못 가는 곳을 가게 되면서 벗어났다.

13. <구시대 원시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시대 무지의 짐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벗어나라.

14. 새 시대에 왔어도 가만히 있으면 옛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저마다 힘들지만 노력하고 깨닫고 행하여 무지를 벗어나라. 원시인적인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 새 차원으로 나와서 살아라.

15. 사람이 자기 게으름으로 인해 편한 것은 임시적으로는 편하다. 그러나 ‘힘들어도 저마다 할 일을 하면서 벗어나야’ 자기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얻는 것이 많고, 근본적으로 편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변화된다. 그러므로 영이 휴거의 차원에 오를 수 있다.

16. ‘벗어나기 삶’을 살아라. 다른 환경으로 옮기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환경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자기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임시적으로는 편한데, 근본적으로 편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17. ‘휴거’도 꼭 현재 차원에서 벗어나야만 된다.

18.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뇌가 굳었기 때문이다. 뇌가 굳으니 마음도 굳어서 마음에서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19. 뇌가 굳은 것은 뇌 암과 똑같다.

20. 정신 차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뇌가 굳은 것에서 벗어나기다! - 그렇지 않으면 결국 혼과 영까지 병들어 버린다. 고로 혼과 영이 변화되지 않아서 휴거의 영이 되지 못하고 끝나 버린다.

21. 자기 성격을 벗어나기다!

22. 성자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성자와 일체 된다. 그러므로 제대로 휴거된다. 말씀을 깊이 듣고 더 깨닫고 행하는 대로 자기 성격을 벗어나게 된다. 말씀을 깊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혼과 영까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못 벗어난다.

23. 성자를 제대로 알려면, 성자 분체의 사명을 모르는 주관권에서 온전히 아는 삶으로 벗어나기다!

24. 분체를 제대로 알고 대해야 표적의 능력과 힘이 생긴다.

25. 분체를 아는 만큼 성자 본체를 알게 된다.

26. 분체를 아는 만큼 죄를 회개하여 죄 문제도 해결된다.

27. 분체를 아는 만큼 천국 신부로 변화되어 휴거된다.

28. 분체를 근본으로 아는 대로 벗어나게 된다.

29. 성자와 그 분체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주관권에서 온전히 사랑하는 삶으로 벗어나기다! - 이것을 못 하면,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결국 천국의 신부로 변화되지 않는다.

30. 저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여 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다!

31.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원시인들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거나 머리에 이고 다니듯, 자기 혼도 영도 무거운 죄의 짐을 머리에 등에 이고 지고 다니게 된다. 그 고통으로 인해 육신도 고통을 받게 된다.

32. 매일 회개함으로 매일 죄에서 벗어나기다!

33. 매일 새벽에 차원 높은 시간으로 벗어나 기도하기다! 그래야 성자와 말씀으로 교통하게 된다.

34. 전도와 관리를 못하는 주관권에서 잘하는 삶으로 벗어나기다!

35. 설교자들은 설교할 때 성자와 분체의 심정을 제대로 못 나타내고, 제스처와 강약 조절과 발음을 제대로 못 하는 주관권에서 벗어나기다!

36. 각종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기다!

37. 모두 이상적인 삶으로 벗어나라!

<2013년 7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38. 날마다 더 이상적인 차원으로 벗어나라!

39. 벗어나더라도 '제시간'에 벗어나야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40. 현재 차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은 해도 금방은 잘 안 된다. / 첫 번째 이유는 다음 단계의 '전환 기점'은 고도의 위치에 있으니 오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전환점'은 힘든 곳이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하면서 열 일을 제치고 집중해서 하면, 자기 차원을 오르는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다. / 두 번째 이유는 목숨을 걸고 안 하기 때문이다.

41. 현재에서 더 이상적인 삶으로 벗어나면 엄청난 것을 얻게 된다. 육도 혼도 영도 확 변화되어서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세계로 옮겨진다. 혼과 영이 더 이상적인 삶으로 벗어난 것을 영계에서 보면, 기뻐서 뛰고 있다.

42. 자기 습관과 버릇에서 벗어나기다!

43. <휴거>도 한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단계로 될 때, '영'이 좋아하고 기뻐한다. 영이 한 차원을 벗어날 때마다 엄청난 자들이 추종하게 된다. 영이 받는 상도 다르고, 인물과 형체도 다르고, 활동하는 주관권도 전혀 다르다. 마치 경차에서 벗어나 좋은 세단을 탄 것같이 완전히 다르다.

44. 벗어나지 못하면, 고통과 손해다. 그러다가 결국 더 밑의 주관권으로 내려간다.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차원이 낮아져 밑의 주관권으로 내려갈수록 더 고통을 받게 된다.

45. 각종 것을 깨닫고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며 '벗어나기 삶'을 살아야 된다.

46. '자기가 변화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된다.

47. '벗어나는 삶'에 착수하여 '벗어나기 삶'을 살아라.

48. 할 일을 두고도 게을러서 안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다! 그동안 못 했던 것을 하면, 그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49. 자기를 중심하고 교역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관리자를 중심하는 자들은 '성자 중심, 분체 중심'으로 속히 벗어나기다! 속히 벗어나야 구원도 휴거도 이루어진다.

50.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 이상적인 삶으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각종으로 귀히 쓰인다.

51. 무지에서 벗어나기다!

52. 100% 행함으로 100선에서 벗어나라. 그래야 200선을 타면서 가게 된다. 200선에서 노력하고 수고하여 벗어나면, 300선을 타면서 가게 된다.

53. '벗어나기 삶'이 얼마나 희망이고 보람이고 기쁜 일인지 절실히 깨닫는 자만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행하여 벗어나게 된다.

54. 섭리사에 왔어도 더 좋게 새로운 스타일로 차원을 높여서 새롭게 바꾸면서 벗어나기다! 마음·정신·생각도, 행실도, 기도도, 전도도, 관리도 더 좋게 변화다!

55.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행하려면, 이전 삶에서 차원을 높여야 하기에 고통이 온다. 그러나 편하려고 가만히 있다가는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이 온다.

56.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면, 후에 엄청난 것을 얻게 된다. 잠깐 임시적으로 편하려고 벗어나지 못하면, 후에 고통만 남게 된다.

57. 벗어나지 못한 자는 곤고하고, 걱정하고, 힘들고, 주저앉는다. 벗어난 자는 희망이고 기쁨이고 보람이다. 그로 인해 힘과 능력을 받아 그 단계에서 더 새롭고 높은 차원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게 된다.

58. 옛날에 월명동에서 살던 청년들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가 살던 환경과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듯 도시로 가서 옛 삶을 벗어났다. 그러나 선생은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방법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연구하여 하나님의 구상과 뜻대로 월명동을 개발하여 월명동을 하나님의 궁으로 만들어 '벗어나기 삶'을 살았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벗어났다. 자기 자신도 이와 같이 변화시키기다! 섭리사를 나가서 세상으로 가면서 벗어나려 하면 안 된다. 섭리사 안에서 성자의 뜻과 말씀을 행하며 자기 마음과 육신의 행위와 혼과 영을 개발하고 더 좋게 만들면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육도 혼도 영도 월명동처럼 근본적으로 가치 있게 변화되어 휴거된다. 사람들은 섭리에서 벗어나 세상에 나가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니 자기 인생의 짐과 죄의 짐을 다 지고 이고 살게 되고, 그 주관권과 환경의 짐을 다 지고 이고 살게 된다. 그러니 더 곤고하고 힘들게 되고, 육적 문제도 영적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게 된다.

59. 자기 인생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들고 온전하게 고쳐서 벗어나기 삶을 살기다!

<2013년 7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60. 현재 차원에서 더 좋게 새로운 차원으로 벗어나라!

61. 휴거되는 선에만 모여서 그 선을 못 넘어오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 선에서 벗어나려면, 집중적으로 자기가 할 일을 해야 된다.

62. 현재 차원에서 벗어나야 다음 차원으로 갈 수 있다.

63. 자기 차원에서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은 선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가야 혼도 영도 현재 주관권의 선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재에서 다음 차원으로 벗어나려면, 꼭 자기 현재 주관권의 것을 해야 된다.

64. 휴거되기만 원하지 말고, 현재 자기가 행할 것을 꼭 행하여라. 그래야 다음 차원으로 벗어나서 휴거되고, 100선에

서 200선으로 오르고, 200선에서 300선으로 오른다.

65. 현재 저마다 해야 할 것을 꼭 행하여 그 선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으로 올라라!

66. 100% 하기다! 하다가 말면 안 된다. ‘매일’ 꼭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해야 된다.

67. 벗어난 자는 할 것은 꼭 하고, 안 할 것은 꼭 안 한다. 이것이 벗어난 자의 표시이며, 표적이다!

68. 자기가 할 것은 꼭 하고 있는지, 안 할 것은 꼭 안 하고 있는지 보면서, 자기가 벗어난 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면서 행하여라. 저마다 자기 혼의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 자기 것은 자기가 보면서 행하여라.

69. 인생 육과 영의 이상적인 삶을 살려면, 자기 육신이 성자의 말을 지킴으로 새롭게 벗어나기다! 성자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부터 즉시 벗어나기 시작한다.

70. 한 번 벗어나면, 다시는 옛 주관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71. 누구든지 자기 육과 혼과 영이 성자의 신부로 온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법이 무서워서’ 지키면 힘들다.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해서’ 희망을 가지고 행해야 벗어난다.

72. 알면서도 자기가 못 해서 못 벗어나고, 몰라서 못 행하여 못 벗어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라.

73.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이집트 땅을 한 번 벗어나니,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는 운명으로 뒤바뀌었다. 이와 같이 미완성 상태에서 휴거 100선을 벗어나 1차 소생급 휴거를 이루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 번 휴거의 선인 100선에 올라 휴거되면, 다시는 휴거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마치 아기 때 성장해서 아기를 벗어나면, 그 후에 다시는 아기로 돌아가지 않듯이 ‘휴거’도 그러하다. 또 엄마 배 속에서 벗어나면, 다시는 엄마 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듯이 ‘휴거’도 그러하다.

74. 휴거 100선까지 올라 벗어났는데 거기서 행하지 않으면, 휴거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휴거 100선의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휴거 100선에 오르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하면, 자기가 행하지 않을수록 점점 더 밑으로 떨어져서 더 낮은 차원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휴거 100선에 올랐으면,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하여 휴거 200선을 넘어가라. 못 넘으면, 100선 중에서도 제일 아래층에 있게 된다. 100선에 올랐으니 200선에 오르는 것은 보다 쉽다.

75.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전진할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고, 희망도 없다.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을 목적하고 도전하여라!

76. 휴거 100선에 올랐으면, 휴거 200선에 오르기다! 200선에 올랐으면, 300선을 넘어서 가기다!

77. 자기 영을 신부로 완성시켜 신랑 되는 성자를 100% 미련 없이 얼마든지 사랑하기다!

78. (성자) 남녀가 서로 사랑하더라도 100%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진다. 나 성자와 마음 안 맞아 헤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완전히 만들기다! 이것이 최고의 영원한 사업이다. 이는 돈도 안 들어가고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 이루는 사업이다.

79. (성자)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육신이 일부만 노력하면 되겠느냐. 작든지 크든지 누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뇌도, 마음도, 몸도 천국 체질이 되어 그 영이 홀연히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한 차원씩 벗어나게 된다.

80. (성자) 자기 버릇, 습관, 성격, 마음, 행실, 혈기, 불의를 못 고치면... 물질에 시험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이

성에 시험이 들고, 사탄 마귀로부터 각종 시험에 들어서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다가 자기 때에 휴거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섭리사를 나가게 된다. 다른 세계로 뒤바뀐 후에 행하려면 힘드니, 지금 자기 때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결심하고 행하여라!

81. (성자) 자기를 더 새롭게 차원 높여 변화시키는 것, 자기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계획적으로 자기를 흠도 없이 변화시켜라!

82. (성자)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데, 세상의 무엇이 그리 아까우냐. 나 성자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문제냐. 돈을 투자하라고 했느냐. 맨손으로 네 마음과 몸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네 육과 혼과 영의 삶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너희 영이 영원히 잘되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왜 지체하느냐. 계속 반복해서 행하기다! 낙심은 금물이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결사적으로 하여라. 하면 된다! 나 성자가 하라고 할 때는 하면 된다. 때가 지나면 해도 안 된다.

83. (성자) 하면 못 할 것이 없다! 나 성자가 내 육을 통해서 직접 확실하게 말해 주니, 할 수 있다. '내 분체와 시대 말씀'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힘을 받고 할 수 있다. / 내 육으로 쓰는 자가 있기에 나 성자가 와서 그 육을 쓰면서 너희 육과 영을 휴거시키니 되는 것이다. 내 육이 없으면 나 성자가 전하는 휴거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하니, 너희 육도 영도 휴거되지 못한다.

84. (성자)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서 그 말씀대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온전한 진리를 배웠으니, 나 성자와 같이 꾸준히 끝까지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하고자 해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 하고자 하는 자를 최고로 돕는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장해야 변화된다.
2. 성장하는 만큼 변화된다. 변화하려면, 몸부림쳐 말씀을 지키며 성장하기다.
3. 자신이 성장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 삶을 거듭나게 바뀌야 빨리 변화가 일어난다.
4. 자기 부족한 삶을 빨리 전환하여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해야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난다.
5. <변화>는 '성장'이다. '자기를 키우기'다. '자기 그릇된 삶을 바꾸기'다.
6. 어린아이가 크면서 '성장함에 따라서' 형상과 모양과 지체가 변화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자기 육신이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를 성장시켜야 빨리 변화된다.
7. 게으름과 그릇된 행위를 부지런함과 온전함으로 바뀌야 변화가 빨리 된다.
8. 자기 육신이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자기 영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완성된다.
9. 변화가 안 되면, 휴거도 안 된다. 완성될 때까지 변화다!
10.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변화된다.
11. 월명동은 땅을 사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화되었다.
12. 자기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대로 완성될 때까지 행해야 삼위가 원하시는 대로 변화된다.

13. 자기 욕이 자기중심, 자기 주관대로 행하여 그 영이 악으로 변하여 악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 심판을 받아 사망의 형벌을 받고 끝나게 된다.
14. ‘절대적 자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행하면서 불의에 밀리지 않기’다! 그러면 자기 욕도 혼도 영도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어 휴거의 영이 된다.
15. 과일나무에 매일 물을 주고 퇴비를 하면서 가꾸면, 매일 계속 변화되면서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린다.
16.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웅장함도 신비함도 없다.
17. 과일도 완전히 변화되어 완성되게 커야 제맛이 나고 아름답다. 크고 있는 과일은 맛도 없고, 아름다움도 웅장함도 신비함도 없다.
18. 신앙도 성장되어 변화하되, 완성돼야 한다.
19. 성장하지 않은 과일은 불품이 없다.
20. 매일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21. 매일 다르게 더 좋게 변화다. 완전히 다 큰 과일은 성장이 멈추고, 변화도 멈추고, 주인만 기다린다.
22. 과일은 핵인 과일의 맛을 봐야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다. 나무를 보고서는 모른다. 사람도 겉만 보고서는 모른다. 인간의 핵인 마음·정신·생각, 혼, 영을 봐야 안다.
23. 사람도 다 커서 변화가 다 되면, 성장이 멈춘다. 키도 더 이상 안 크고, 각 지체의 발육도 끝난다. 이때부터는 자기가 관리하는 대로 각 지체가 더욱 튼튼하게 변화된다. / 신앙적으로도 먼저 발육되고 변화되어 끝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마음·정신·생각, 혼체, 영체는 계속 변화되고 성장되고 발육된다. 특히 뇌는 마음·정신·생각이니, 나이가 들어 뇌가 쇠할 때까지 일생을 두고 계속해서 변화된다.
24. 뇌는 온 지체 중에서 핵이다. 쓰는 대로 마음·정신·생각과 함께 끝없이 변화된다. 뇌는 혼과 영과 함께 변화되다가 결국은 영이 완성되게 한다.
25. 자기가 할 것을 안 하면, 자기 변화가 안 된다.
26.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자기 변화가 안 된다. 자기가 안 만들면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가 성자의 말씀대로 행해야 자기 인생을 성장시키면서 변화시키며 자기 혼과 영도 하늘나라의 형체로 만들게 된다. 육신의 모든 발육이 멈췄어도 뇌, 즉 마음·정신·생각은 죽을 때까지 변화된다. 그러니 계속 행하여 자기 혼과 영도 변화시켜라.
27. 개인도 스타일을 바꾸고 행해야 변화가 크게 된다. 확대하여 섭리역사도 스타일을 바꿀 것은 바뀌야 변화가 크게 된다.
28. 하나님도 구원역사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약으로 아예 바뀌 버리고 새롭게 말씀을 주고 새롭게 행하게 하시며 전혀 다르게 변화시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29. ‘생각’을 아예 뒤바꾸고 행하기다!
30. ‘방향’을 아예 뒤바꾸고 행하기다!
31. 우상을 섬기면서 구원받겠다고 하고 복을 받겠다고 하는 자들은 유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방법으로 ‘생각과 방향’을 아예 뒤바꾸지 않으면, 일생 동안 우상을 믿어도 구원이 없고, 도리어 심판만 받는다.

32. 바꾸기다! 바꾸고 행하기다! 그냥 행하면 변화가 없고, 행해도 점점 어둠으로 변하고, 행할수록 더 구시대로 빠져든다.

33. 구시대는 구시대 스타일이다. 새 시대 스타일로 바꾼 자들을 따라올 수 없다.

34. 자기 인생 신앙 스타일을 바꾸기다!

35. 자기 스타일과 자기 성격 때문에 수고는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해도 변화가 조금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36. ‘원시인 스타일’에서 ‘발달된 스타일’로 바꾸기다! 그래야 짐을 지고 가던 것을 수레로 끌고 가게 되고, 거기서 또 바꿔야 차를 만들어 운전해서 가지고 가니 쉽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높은 스타일을 받고 깨달아 그 생각대로 행하기다!

37.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스타일의 노선을 타기다!

<2013년 7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생각’과 ‘느낌’으로 살아간다.

2.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번 어떤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 생각하며 집착하게 된다.

3. 뇌에서 잊어버리면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또 생각이 들면 계속 생각하게 된다.

4. 가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했다고 생각하면, 즉시 뇌에서 분노의 작용이 일어나고, 가상적으로도 공격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냥 생각만 했어도 분노가 발생한다. 뇌는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5. 자기 욕이 범사에 항상 성자를 생각하면서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에게 감사하면, 뇌는 그같이 작동되어 혼적으로 영적으로 혼과 영에게 영향을 주면서 ‘변화의 실상’이 일어나게 된다.

6. 뇌는 생각하는 대로 영향을 받아 작동하고, 느껴지고, 개발된다.

7. <몸>은 ‘건드리고 움직이는 대로’ 느낀다. <뇌>는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작동한다.

8. 사람이 느낌과 생각이 없으면, 식물인간이 되어 살아간다.

9. 어떤 잡생각과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목적한 것’을 강하게 생각해야 된다.

10. 뇌가 굳어지면 한 세월이 가도 모른다.

11. 뇌가 굳은 것은 잠자는 격이다. 고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

12. 모르면 잠자는 것이다. 뇌가 굳은 것이다.

13.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하면 뇌는 하염없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하나님과 성자가 느끼듯이 느낀다.

14. 뇌가 작동해도 ‘육적으로’ 작동하면 별것도 아닌 것에 대해 작동하고 끝난다.

15. ‘위대하고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일’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만나서 자기 육을 구원하고, 그로 인해 자기 영을 구원하고, 자기 영혼을 휴거시켜서 사는 일이다. 나머지 모든 일은 육체와 함께 꿈결같이 없어지고 사라진다. (아멘!)

16.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뇌가 발달되고 생각이 발달되어 사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행하면서 산다. 고로 수천 배, 수만 배 더 얻는다.

17.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생각하면서 실천하여라.

18. 뇌는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그 범위가 작다. 눈으로 보면서 몸으로 실천하면 범위가 넓어진다.

19. 자기가 실천해야 자극받고 생각하고 구상하게 된다.

20. 지체 자극은 뇌 자극이다. 모든 지체는 다 뇌와 연결되어 있다.

21. 뇌는 두 군데에서 시동이 걸린다. 첫째, 생각함으로 마음에서 시동이 걸린다. 둘째, 지체가 행동함으로 시동이 걸린다.

22. 뇌가 흐리멍덩할 때 뛰고 운동하면, 몸에 시동이 걸려서 뇌가 작동한다.

23. 뇌는 예민하기 때문에 찬물로 머리를 감고 행동하면 자극을 받고 총명하게 움직인다.

24. 잠이 올 때 뇌는 피곤하여 기능이 떨어져 흐리멍덩해진다.

25. 뇌가 피곤하고 신경 쓰고 걱정 근심하고 번뇌하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불안하게 된다.

26. <육의 체질>도 길들이기에 달려 있고, <뇌의 체질>도 길들이기에 달려 있다.

27. 기도하여 영적인 뇌로 만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여 뇌의 체질이 뒤바뀐다.

28. 육신의 길을 잘못 들여 놓으면 자기가 자기를 고달프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고통받는 몸이 되게 한다. 뇌도 그러하다.

29. 날마다 깊은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뇌의 병적인 것이 치료되고, 성자의 마음과 일체 되어 뇌가 정상이 된다. 마치 현 차가 새 차가 되듯 한다.

<2013년 7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30. 온 지체는 뇌의 확대체다. 운동을 안 해서 몸이 굳은 만큼, 뇌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만큼 뇌신경이 굳어 있다.

31. 뇌가 어디가 어떻게 굳어 있는지, 자기 육신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곧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뇌가 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32. 타인을 볼 때도 그러하다. 타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뇌’를 보는 것이다.

33. 뇌가 굳으면, 누가 앞에서 행해도 전혀 모른다.

34. 뇌는 몸과 같이 안 쓰면 굳는다.
35. 매일 ‘손과 발’을 쓰듯이, 생각하면서 ‘뇌’를 써야 된다.
36. 뇌를 안 써 버릇하면, 젊은 자라도 뇌가 굳어서 치매 현상이 온다.
37.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면서 뇌를 써야 된다.
38. 자기 뇌와 몸이 체질이 된 대로 그것을 좋아하고 행하려 한다.
39. 뇌를 잘못 길들이면 고치기 힘들다. <뇌 체질>은 ‘몸 체질’이 되고 ‘마음 체질’이 된다.
40. 자기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는 ‘뇌’가 굳었고, 그로 인해 ‘몸’이 굳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하면, 몸이 운동하면 풀리듯 뇌가 풀린다. 풀린 뇌는 100배, 1000배 기능을 하게 된다.
41. 육적으로 영적으로 활동하여 뇌를 풀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뇌가 굳어서다!
42.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두 가지로 창조해 놓으셨다. 첫째, ‘영적인 뇌 구조’와 둘째, ‘육적인 뇌 구조’다.
43. 뇌를 육적으로 창조해 놓지 않았다면, 인간은 육적인 삶을 못 산다. 이와 같이 뇌를 영적으로 창조해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영이 천국에 못 가게 된다.
44. 탱크를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사용하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바다에 못 들어간다. / 인간의 뇌도 그러하다. 인간의 뇌는 육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뇌로 창조해 놓았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뇌’를 사용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삼위가 보내신 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기도하여 영적인 자가 돼야 한다. 그리고 자꾸 영적인 뇌를 사용해야 된다.
45. 여자가 남자와 사랑으로 통하도록 구조를 창조해 놓았듯이, 인간의 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영적으로 통하도록 창조해 놓았다. 확실하다! 그런데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도 이것은 모른다. 하늘의 영적인 뇌 과학자만 안다.
46. ‘영적인 뇌 구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사용하는 것으로 창조해 놓았다. 인간이 그것을 찾고 그것으로 통해야 즉시 신과 통한다.
47. ‘사랑의 뇌’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극적으로 사랑해 보아라. 그러면 즉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는 뇌가 작동하여 통하게 된다.
48. 전화선이 모두 다르듯이, 뇌 선도 수백만 가지가 있고 그 기능도 각각 다르다.
49. 열차나 지하철 노선이 각각 다르듯이, 뇌 선도 다 다르다. 개발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기에 모르는 것이다. 매일 뇌를 써라. 그리고 수백만 가지의 뇌 선을 발견하여라. 육신이 해야 그 선과 그 분야의 뇌가 작동한다.
50. 인간의 뇌는 육적으로 먹고 입고 자는 것, 성적인 것, 학문, 물질로 발달되어 있기에 영적으로는 발달이 잘 안 된다.
51. ‘몸’은 어떤 한 가지만 발달되면 다른 것은 발달이 잘 안 된다. ‘뇌’도 그러하다.
52. 뇌는 신경으로 느낄수록 더 작동한다. 고로 먹는 것도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먹는다. 어떤 것이든지 뇌가 한 번 작동되고 흥분되면 육신이 지쳐서 한계에 갈 때까지 하게 된다. 고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뇌’라는 육체를

다스러야 된다.

53. 뇌신경은 온몸에 지체별로 다 깔려 있다. 한계를 넘으면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이든지 안 하게 된다.

54. 뇌가 고장 나 있으면, 육체도 마비되고 고장 나서 안 해지는 것이다.

55. '육체'는 보이는 뇌의 확대체다.

56. '몸'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뇌'를 보는 것이다.

<2013년 7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목적은 희망과 기쁨이다.

2. 성자의 한마디 말씀은 인생에게 최고로 필요한 값진 말씀이다. 성자의 말씀대로 하면 성자가 함께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다.

3. (성자) 일을 다 끝내는 것만 목적으로 두지 말아라.

4. (성자) 일을 다 끝내는 목적이 끝나면, 마음도 해이해지고 몸도 아프고 후유증이 온다.

5. (성자) 목적한 것만 다 하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지 말아라.

6. (성자)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나 성자와 함께하는 기쁨과 희망과 꿈이 있다. 목적만 이루어 없애려고 하면, 과정 중에 기쁨과 보람이 없다. 지치고 힘들기만 하다.

7. (성자) 섭리사에서 작고 큰 사명을 맡은 자들이 자기가 맡은 일만 얼른 빨리 해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 목적을 빨리 속 시원하게 이루고 끝내려 한다. 일을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일에 빠져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 나 성자가 일을 맡기고 나와 같이 하자 해도 마음도 정신도 몸도 일에 빠져서 나 성자와 같이 꿈도 희망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8. (성자) 일을 빨리 끝내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그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니... 일도, 면담도, 강의도, 관리도, 설교도, 기도도, 전도도, 만사의 모든 일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것이다. 또 일을 해도 형식으로 하게 되고, 100% 완벽하게 안 된다.

9.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만 달성하려고 한다. 고로 몸부림쳐서 얼른 그 일을 해 버리려고 한다. 그러면 일이 날림이 되고, 형식이 되고, 100% 제대로 안 된다.

10. (성자) 모든 일은 진수성찬 먹듯 하여라.

11. 맛있고 풍성한 진수성찬이라도 배만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빨리 먹고 끝내려고 하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먹어야 제맛을 느껴 먹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

12. (성자)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목적한 일을 할 때, 진수성찬을 먹듯이 나 성자와 내 분체와 천천히 하여라.

13. 음식은 먹는 재미다. 빨리 다 먹어 치워 버리는 것에 목적을 두면 음식 먹는 재미가 없다. 음식 한 가지, 한 가지의 맛을 보고 느끼면서, 눈으로 구경도 하면서 깨무는 맛, 씹는 맛, 넘기는 맛을 느껴야 된다. 그래야 음식을 먹을 때 흥분되고, 힘을 받고, 엔도르핀이 생기고, 기쁨이 솟아난다.

14.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면서 먹듯이, 모두 각자 맡은 일들을 할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성자와 분체와 의논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라는 것이다.

15. ‘언제 일이 다 끝나지? 언제 공부가 끝나지? 언제 맡은 책임과 사명이 끝나지?’ 하면서 그냥 몸부림만 치고 일을 끝내려고 하기만 하면,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 그로 인해 건강도 나빠진다. 과로가 쌓인다. 목적을 없애려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다. 목적한 것을 다 할 때까지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는다.

16. 처음부터 목적한 것을 다 할 때까지는 ‘꿈과 기쁨과 희망의 과정 기간’이다. <목적을 두고 일하는 이 기간>은 ‘진수성찬을 먹는 식사 시간’과 같다. 고로 <목적을 두고 일하는 기간>은 ‘기쁨과 희망의 흥분 기간’이다.

17. 전도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관리를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섭리사의 각종 사명의 일들을 하든지, 일만 얼른 빨리 끝내 버리려 하지 말아라.

18. <일하는 기간, 사명 기간>은 ‘기쁨과 희망의 흥분 기간’이다. 이때는 남녀가 연애하며 사랑하는 기간과 같으니, 성자와 분체와 같이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성자의 구상을 받은 대로 행하는지 보면서, 성자와 함께 생각하면서, 주께 물으면서 하여라.

19. (성자) 목적한 것을 다 하면 열이 식는다. 그러면 또 찬바람만 휘날린다. 인생을 나 성자가 멘토링 하는 대로 살아라. 그래야 휴거도 실수 없이 된다. 제대로 못 하면 반복해서 다시 해야 된다.

20. (성자) ‘휴거’는 인생 육의 삶을 통해서 육도 혼도 영도 땅에서 변화되며 이루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영이 휴거의 영이 되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할 일만 해치우면서 살면, 육의 삶이 피곤하고 지친다. 육의 삶이 지치면, 그로 인해 육도 혼도 영도 땅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 고로 영이 휴거되는 데도 지장이 생긴다. 고로 인생은 피곤치 않게 살아야 된다.

<2013년 7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섭리 인생>은 ‘신부의 삶’이다. 그런데 할 일에 쫓기면서 피곤하게, 인생 곤고하게, 힘들게 살면 오래 못 가고 쓰러진다.

22. 인생,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니니까 요령 있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23. 요령 있게 살라는 말은 이치를 알고 살라는 말이다.

24. ‘이치’는 나무로 따지면 ‘나뭇가지’와 같다. 이치를 알고 살라는 말은 곧 일의 가지가지마다 맛있게 느끼면서 행하라는 것이다.

25. 일 하나하나, 사명 하나하나 행하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는 시간과 같다.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맛을 느끼듯, 일을 하면서 각종 일의 개성의 맛을 느끼며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을 하면서 그 일에서 힘을 얻고, 일하면서 깨닫고, 행함으로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유익을 얻고, 행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 강하게 존재하게 된다.

26. 사명을 맡아도 왜 그 일을 맡게 됐는지, 일이 끝나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는 일을 다 끝내는 것만 목적으로 두고 했기 때문이다.

27. 일을 다 끝내는 것만 목적으로 두면, 일하면서 피곤하고 곤고하다. <일>이 ‘낙’이고 ‘영광’인데, 오히려 ‘짐’이 된 것이다.

28. <사명>은 ‘벼슬’이다. ‘면류관’이다. 사명을 안 하면, 별것도 아닌 자가 된다. 사명을 하니 빛이 나는 것이다.

29. 성자와의 사랑 때문에 성자의 일을 하는 것이다.

30. 일에만 목적을 두고 일만 없애려고 하는 자는 일만 하는 일꾼이다.

31. ‘일꾼’으로 쓰려고 섭리사로 불러온 것이 아니다. ‘성자 사랑의 대상체’로 삼으려고 섭리사로 불러왔다. 사랑하는 자들이 성자와 그 분체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사연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뜻을 이뤄 가는 것이다.

32. 일에만 목적을 두고 일만 해치우는 사람은 성자와도, 그 분체와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섭리사에 왔어도 신세만 고달픈 섭리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이 피곤하니 피하고 그만하려 한다.

33. 음식도 배만 채우려는 목적으로 먹어 치우면, 나중에는 음식이 먹기 싫어서 피하게 된다. 사람이 음식으로 건강해 지는데 음식이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하느냐.

34. ‘일’로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명’으로 영도 혼도 육도 축복받고 변화되고, ‘일’로 성자의 사랑도 받으며 휴거되는 데, 일을 지겹게 하면서 일의 권태를 느껴서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희망도 기쁨도 끝이 난다.

<2013년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35. (성자) 계속 목적을 만들어라. 목적을 세우고 행하되, 그 목적을 없애는 것만 생각하지 말아라. 목적이 희망이고 기쁨이니, 목적을 다 이루면 또 목적을 구상하고 행하여라. 그래야 목적을 두고서 희망과 기쁨과 꿈이 생긴다.

36. 과정 중에만 즐거워할 수 없다. 목적을 이뤄야 된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면, 목적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과 꿈이 사라진다. 고로 목적을 또 세우고 행하면서, 과정 중에 기쁨과 보람과 희망을 누려라.

37.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짓는 과정만 즐기면서 목적인 완공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집을 다 지어 목적을 이루면, 과정 중의 재미와 기쁨과 희망과 꿈은 끝난다. 고로 2차로 목적을 또 세우는 것이다. 곧 그 집에서 멋지게 사는 목적을 구상하고, 또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 목적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38. 점심 식사를 하면 또 ‘저녁 식사’라는 목적을 만들고, 저녁 식사를 하면 또 ‘잠자기’ 목적을 만들고, 잠자고 일어나면 또 ‘새벽기도 시간’ 목적을 만들고, 아침이 되면 또 ‘활동하기’ 목적을 만들어 행하면서 살아야 희망과 기쁨이 연속된다.

39. 이와 같이 섭리사 각 교회마다, 각 부서마다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성자와 선생과 같이 쉬지 말고 ‘목적’을 구상하고 만들어 모두 행하여라.

40. 목적이 없으면 열이 식어서 마음이 해이해진다. 그리고 놀기만 한다. 그러면 인생 맛도, 섭리 맛도, 희망도, 기쁨도 끝이 난다.

41. 각 교회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예술단, 스타들은 모두 의논하여 쉬지 말고 ‘목적’을 세워서 행하여라.

42.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것을 근본의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을 위해 ‘휴거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43. 1차 휴거 100선을 목적으로 삼고 행하여라. 그리고 2차 휴거 200선을 목적으로 삼고 또 행하여라. 그리고 3차 휴거 300선을 목적으로 삼고 또 행하여라. 목적을 없애려 하지 말아라. 목적은 희망과 기쁨이다!

44. 모두 휴거되도록 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으니, 저마다 말씀대로 행하면 휴거된다.

45. 하나님께서 지구 세상에 성자를 보내시어, 성자는 땅에서 육으로 쓸 자를 분체로 삼아서 지금 이 시대에 <휴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휴거의 기쁨과 희망’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라.
46. ‘휴거’라는 목적만 두고 미쳐서 몸부림치면, 성자와 사랑도 못 하고 휴거에만 빠져서 행한다. 고로 ‘휴거의 맛’을 모른다. 이는 마치 진수성찬의 맛을 모르고, 음식을 급히 다 먹는 것만 목적하고 미쳐서 먹는 자와 똑같다.
47.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것을 목적하고 성자를 사랑함으로 말씀도 행하고, 성자를 사랑함으로 휴거를 이루어라!
48. ‘급하게 얼른 해 버려야지.’ 하고 일만 하면, 그 일이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일할 때 지치고 피곤하고, 일에 질리고, 그 일을 해도 완벽하게 해지지 않고 결국 무너진다.
49. 말씀을 듣고 배울 때도 천천히 확실히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좋아서 성자를 믿고 분체를 따르며 섭리역사를 가야 된다. 얼른 다 가르치는 것만 목적하면,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피곤하다. 고로 섭리 인생을 피곤하게 살게 된다.
50. 기도도, 전도도, 관리도, 찬양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하나 진수성찬 먹듯이 ‘맛’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다. 진수성찬의 음식들을 하나하나 맛을 느끼면서 먹듯이, 섭리의 모든 일들을 할 때도 성자를 부르고, 그 분체와 이야기도 나누고, 사연도 말하고, 서로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51. 설교자들도 급하게 빨리 설교하고 끝내려 하지 말고, 충분히 완벽하게 준비하고 듣는 자들이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전하여라. 한 번의 설교가 끝나면, 또 다음 설교를 은혜롭게 전하는 것을 목적하고 준비해야 된다.
52. 말씀을 맛있게 전해야 된다. 전능자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함’을 풍기면서 말씀을 전하여라.
53. 인생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빛을 발해야 된다. 첫째, 아름다움 둘째, 신비함 셋째, 웅장함이다. 이 세 가지 맛을 말해 줬으니, 인생 하루를 살아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살아라!
54.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이라는 세 가지를 깨닫고 알아야 만물을 보고 써도, 인생을 살아도 이 세 가지 맛을 느끼면서 기뻐하고 감탄하고 은혜를 받고 희망에 차서 힘을 받고 살게 된다.
55. 뇌가 굳어 무지한 자, 자기도취에 빠져 자기를 중심해서 사는 자는 휴거가 안 되어 있다.
56.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가 인도하시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성자도 필요 없는 자다.

<2013년 8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미래의 것도 현실의 것도 아닌데, 이미 지나온 과거의 것을 논할 것도 없고 다룰 것도 없다.
2. 이미 지나온 자와 다룰 것 없다.
3. 과거와 겨루지 말아라. 현실과 겨루어라.
4. 지나간 자를 놓고 이야기할 것 없다.
5. 구시대 기성과 새 시대는 ‘생각’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고로 부딪히는 것이다.

6. 우리도 지난날에 저들같이 생각하기도 했고 행하기도 했다. 때가 되면 성자께서 새 시대로 올 자들은 빛 앞에 오게 할 것이다.
7. 잠자는 자는 거치는 자가 된다. 잠에서 깨서 일어나면 자기도 길 가기에 바쁘다.
8. 때가 되면 새벽잠을 깨듯이 시대의 잠에서 깨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새벽을 깨우지 못하듯이 시대의 잠에서 깨지 못하여 인생 때를 놓치는 자도 있다.
9. 늦게 출발해서는 새 역사에 미치지 못한다.
10. 기성은 일찍 출발했기에 일찍 나이가 들어서 자기 인생의 해가 지니, 새 역사에 미치지 못한다.
11. 구시대는 구시대에서 끝난다. 구시대와 새 시대가 겹칠 때는 겨우 소수의 무리만이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온다. 새 시대가 시작되면 새 시대에 해당되는 자들이 새 시대로 온다.
12. 일찍 태어났으니 일찍 죽는 것이다.
13. 시대 사명자를 보아라. 때에 맞게 태어나야 시대 혜택을 보게 된다.
14. 시대를 구하러 온 자가 태어나서 먼저 연단받고 배우고 큰 후에 세상에 나온다. 그때 10대, 20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15. ‘때’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못한다. 때를 잘 타고 태어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야 된다.
16. 너무 일찍 태어나도 시대 보낸 자를 못 만나고, 너무 늦게 태어나도 시대 보낸 자를 못 만난다.
17. 하나님이 보낸 자의 일생을 ‘하루의 해’로 보아라.
18. 해가 뜨기 전에 태어나 죽은 자는 해를 못 보고, 해가 진 후에 태어난 자도 해를 못 본다. 신약 2000년 만에 해가 떠서 50년 동안 떴다가 진다. 이때 태어나야 해를 보게 되고, 그중에서도 해를 아는 자들만 빛 앞에 오게 된다.
19. 해의 주관권은 성약은 1000년 동안이고, 신약은 2000년 동안이었다.
20. 해와 함께 사는 자는 낮에 사는 자다.
21. 해가 떴어도 잠자는 자는 못 본다.
22. ‘해’는 시대의 온전한 진리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시대에 보낸 자다. 이 ‘해’가 인생들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23. 성자는 세상을 비추이는 해를 자기 육신으로 삼고 역사하신다.
24. 해를 등진 자는 죽은 생명이다.
25. 해가 없는 곳은 암흑이다. 얼음 세계다. 겨울이다.
26. 기성은 이제 밤이 왔다.

27. 기다리는 자는 오지도 않고, 시대는 다 가고 올상이다.
28. 항상 밤의 반대쪽은 빛이요, 낮이다. 낮의 반대쪽은 밤이요, 어둠이요, 잠이다.
29. 빛이 비추니, 어둠이 빛을 피한다.
30. 빛이 비추니, 알몸인 영혼들이 빛을 피해 어둠으로 사라지고, 그 마음들도 어둠을 따라간다.
31. 죽은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여 퇴비하며 희망하고 있느냐.
32. 산 감나무와 죽은 감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산 감나무가 죽은 감나무 가지 사이로 뻗어 나간다.
33. 주인이 죽은 나무를 베든지, 산 나무를 캐다가 더 좋은 데다 심는다.
34. 겨울철에는 죽은 나무에도 산 나무에도 잎이 없다. 고로 어떤 것이 죽은 나무인지 모른다. 그중 하나는 죽은 것이다. 때가 와서 봄이 되면 안다.
35. 봄이 되면, 산 나무에는 잎이 핀다. 그 잎이 무성하여 죽은 나무를 뒤덮으니, 죽은 나무도 산 나무같이 보인다.
36. 죽은 나무는 가만히 놔둬도 주인이 벤다.
37. 죽은 나무를 안 베면 어찌 하겠느냐. 산 나무를 좋은 곳으로 옮긴다.
38. 사망 속에서 사는 육신들도, 죽은 영혼들도 죽은 나무로 보여 준다.
39. 꿈에 죽은 나무를 보여 주는 것은 사망 속에서 사는 자들과 죽은 영혼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앙으로 죽은 자를 말한다.

<2013년 8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40. 네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41.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듯, 나 성자와 분체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42. 생각이 다르면, 동행하지 못한다.
43. 생각이 같을 때만 동행이다. 사랑이다. 일체다.
44. 성자와 생각이 같으려면, 즉시 자기 마음을 비워라. 즉시 자기 스타일을 버려라. 그리고 성자의 마음을 가져라.
45. 신과 통하려면, 신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46. 자기가 한 것이 더 좋아도 성자와 안 통하면, 성자가 동행하지 않는다.
47. 일체다. 하나다. 통하기다.
48. 일체 돼야 느낀다. 일체 돼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49. 자기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성자가 생각해야 된다.
50. 너는 생각하지 말고, 성자께 물어보아라. 너는 물음이다. 답이 아니다. 답은 성자다.
51. 성자가 온종일 가만히 계시어 답답해도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래야 성자가 보고 생각하고 행하시게 하는 것이다.
52.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성자가 그 마음을 안 주신다. 자기 생각을 싹 비워야 성자의 마음을 주신다. 자기 스타일을 싹 버려야 성자의 마음을 주신다.
53. 성자는 100%가 돼야만 행하신다. 그래서 신이시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54. 너도 기다린다 해도, 힘들다 해도 100%가 된 후에 행하여라.
55. 야수가 있다 하자. 총을 맞고 100% 죽은 후에 다시 갈 길을 가라는 것이다.
56. 어떤 사람은 야수가 총에 맞고 넘어져서 숨만 쉬고 있으니 가서 잡았다. 그러다가 야수가 그 사람의 볼을 물었다. 결국 같이 죽었다.
57. 늦더라도 100% 온전할 때 하여라.
58. 100% 성자의 생각인지 보고 하여라.
59. 성자는 생각, 나는 실천이다.
60. 나는 없다. 성자만 있다.
61. 신부가 다 가지고 있으면 신부가 아니다.
62.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된다.
63. 신부는 그릇이다.
64. 신부는 마음 그릇이 항상 깨끗이 비어 있어야 된다.
65. 음식을 중간에 놔둬라. 그래야 여러 사람이 먹는다. 잠언의 음식도 그러하다. (잠언을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쓰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잠언을 먹게 된다. 잠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깨달도록 핵만 쓰라는 것이다. 각자 기도하여 깨닫고 알게 하라는 것이다.)
66. 성경은 입으로 먹는 것만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사랑해 주는 것도 음식같이 먹을 것을 줬다고 표현하여 기록했다.
67. 성경에 때리는 것만 매와 채찍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채찍과 전혀 상관없이 말로 책망한 것도 채찍으로 표현하여 '맞았다. 때렸다.' 했다.
68. 성경에 하나님은 남자도 "처녀다. 여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도 말씀하셨고, '부모'로도 말씀하셨고, 각종으로 말씀하셨다.
69.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를 '때'와 '처지'와 '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애인으로, 남편으로, 부모로, 오빠

로, 자기가 낳은 아기로, 친구로, 어느 때는 경호원으로, 수십 가지로 보고 말한다. 성자도 심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그같이 대해 주신다. 성자가 어떤 의미에서 그같이 말하고 계시하셨는지 알아라.

70. '취했다.' 할 때는 물건을 취한 것같이 이성 관계를 하여 여자를 취했다 하는 것이다.

71.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천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셨다. 이 시대 잠언도 그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썼으니, 어떤 한 가지로만 단정 짓지 말고 여러 가지로 깨달아라.

72. 네 음식 먹지 말고, 내 음식 먹어라.

73. 이 음식은 세상 음식이 아니니, 좋은 것만 찾지 말고 때를 따라 주는 대로 먹고 행하여라.

74. 오늘 새벽에 내가 한 음식도 있고, 성자가 해 주신 음식도 있다. 성자가 해 주신 음식은 표가 난다.

<2013년 8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40. 네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41.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다르다는 것을 알듯, 나 성자와 분체의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42. 생각이 다르면, 동행하지 못한다.

43. 생각이 같을 때만 동행이다. 사랑이다. 일체다.

44. 성자와 생각이 같으려면, 즉시 자기 마음을 비워라. 즉시 자기 스타일을 버려라. 그리고 성자의 마음을 가져라.

45. 신과 통하려면, 신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46. 자기가 한 것이 더 좋아도 성자와 안 통하면, 성자가 동행하지 않는다.

47. 일체다. 하나다. 통하기다.

48. 일체 돼야 느낀다. 일체 돼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49. 자기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성자가 생각해야 된다.

50. 너는 생각하지 말고, 성자께 물어보아라. 너는 물음이다. 답이 아니다. 답은 성자다.

51. 성자가 온종일 가만히 계시어 답답해도 네가 생각하지 말아라. 네 생각대로 행하지 말아라. 그래야 성자가 보고 생각하고 행하시게 하는 것이다.

52.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성자가 그 마음을 안 주신다. 자기 생각을 싹 비워야 성자의 마음을 주신다. 자기 스타일을 싹 버려야 성자의 마음을 주신다.

53. 성자는 100%가 돼야만 행하신다. 그래서 신이시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신다.

54. 너도 기다린다 해도, 힘들다 해도 100%가 된 후에 행하여라.

55. 야수가 있다 하자. 총을 맞고 100% 죽은 후에 다시 갈 길을 가라는 것이다.
56. 어떤 사람은 야수가 총에 맞고 넘어져서 숨만 쉬고 있으니 가서 잡았다. 그러다가 야수가 그 사람의 볼을 물었다. 결국 같이 죽었다.
57. 늦더라도 100% 온전할 때 하여라.
58. 100% 성자의 생각인지 보고 하여라.
59. 성자는 생각, 나는 실천이다.
60. 나는 없다. 성자만 있다.
61. 신부가 다 가지고 있으면 신부가 아니다.
62.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된다.
63. 신부는 그릇이다.
64. 신부는 마음 그릇이 항상 깨끗이 비어 있어야 된다.
65. 음식을 중간에 놔둬라. 그래야 여러 사람이 먹는다. 잠언의 음식도 그러하다. (잠언을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쓰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만 잠언을 먹게 된다. 잠언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깨달도록 핵만 쓰라는 것이다. 각자 기도하여 깨달고 알게 하라는 것이다.)
66. 성경은 입으로 먹는 것만 음식을 먹는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사랑해 주는 것도 음식같이 먹을 것을 줬다고 표현하여 기록했다.
67. 성경에 때리는 것만 매와 채찍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채찍과 전혀 상관없이 말로 책망한 것도 채찍으로 표현하여 '맞았다. 때렸다.' 했다.
68. 성경에 하나님은 남자도 "처녀다. 여자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도 말씀하셨고, '부모'로도 말씀하셨고, 각종으로 말씀하셨다.
69. 결혼하면 여자는 남자를 '때'와 '처지'와 '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 애인으로, 남편으로, 부모로, 오빠로, 자기가 낳은 아기로, 친구로, 어느 때는 경호원으로, 수습 가지로 보고 말한다. 성자도 심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그같이 대해 주신다. 성자가 어떤 의미에서 그같이 말하고 계시하셨는지 알아라.
70. '취했다.' 할 때는 물건을 취한 것같이 이성 관계를 하여 여자를 취했다 하는 것이다.
71.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천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하셨다. 이 시대 잠언도 그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썼으니, 어떤 한 가지로만 단정 짓지 말고 여러 가지로 깨달아라.
72. 네 음식 먹지 말고, 내 음식 먹어라.
73. 이 음식은 세상 음식이 아니니, 좋은 것만 찾지 말고 때를 따라 주는 대로 먹고 행하여라.
74. 오늘 새벽에 내가 한 음식도 있고, 성자가 해 주신 음식도 있다. 성자가 해 주신 음식은 표가 난다.

<2013년 8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75. 인생 청춘 나무는 어디에서 불태우든지 한 번 불이 붙어서 타면 거기서 끝난다.
76. 인생 청춘과 사랑을 어디에서 태우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마른나무에 불붙이기다. 한 번 불이 붙으면 거기서 끝난다.
77. 인생 청춘과 사랑을 탄 데 불태우지 말아라. 성자를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영원히 빛나리라!
78. 세상에다 다 살라 버린 청춘과 사랑은 허망, 허무, 후회, 무가치, 빈털터리, 빈 콩깍지, 빈 조개껍질, 죽은 동물 가죽과 같다.
79. 하늘에다 사른 청춘과 사랑은 영원하다. 수천 배, 수만 배 빛난다.
80. 세상에만 사랑이 있느냐. 왜 그 귀한 사랑 거목으로 개집을 짓고 사느냐.
81. 하늘에 바친 사랑으로는 천국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살아간다.
82. 육이 사랑을 하늘에 불붙여 태우면, 영이 그 사랑을 이어받아 영원히 사랑을 불태우며 산다.
83. 눈이 풀린 자는 마음이 풀리고 사랑이 풀린 자다.
84. 그 음식은 일생을 가도 그 음식이다.
85. 사람은 땃줄을 타고 나듯이, 인생은 타고난다.
86. 인생을 개발하지 않고서 끝까지 가 보아라. 그러면 타고난 인생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 타고난 인생은 다르다. 못 따라간다.
87. 한 부모 밑에서 한 태에서 태어나도 남자와 여자로 타고나고, 성품과 소질과 재능도 타고난다.
88. 타고나지 않아도 후에 개발해서 타고나기도 한다.
89.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고 행하시는데, 타고나지 않겠느냐. 큰 뜻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타고난다.
90. 보통 사람은 보통으로 타고나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사람은 크게 계획적으로 타고난다.
91. 미리 타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92.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미리 타고난 것 위에 더 개발하여 더 빛나게 한다.
93. 타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원하는 대로 만든다는 것이다.
94. 사랑은 어린 자에게는 '사랑을 주는 재미'이고, 큰 자에게는 '사랑을 받는 재미'이다.
95.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 이 말은 맞는 자에게만 맞다.
96. 사랑을 줄 만큼 줬으면, 그때부터는 받는 것이 기쁨이다. 항상 주기만 하면 짝사랑이다.

97.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키울 때는 주는 사랑이 기쁨이다. 그러나 자식이 다 크면, 받는 사랑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고 괴롭다.

98. 애인도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이 없어도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기쁨이 충분하다. 그때는 받을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가 커도 주기만 하면 싫어한다. 그때는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99. 자기가 어릴 때는 누구나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크면 주는 것이 기쁨으로 돌아간다.

100. 남자들도 여자들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자를 사랑하는 것에 호기심이 유발된다. 그러나 살아 보면, 어린 자는 주는 것을 모르고 받기만 한다. 고로 사랑의 격차가 생기고, 심정이 일체 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자를 택하여 자기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원하며 산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세상 육적 사랑'으로는 심령의 만족을 느끼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101. '육적 사랑'만으로는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성 사랑은 여러 가지 답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먹는 것, 입는 것, 환경, 집, 정신계, 영혼계 등 각종 문제를 다 해결해야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2013년 8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너는 책임을 못 해 포기했어도 성자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니 다시 기회를 주어 행하게 하신다.

2. 너는 포기했어도 성자와 그 육인 구원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어 하게 하니,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자와 그 육이 한 것이다. 이를 확실히 깨닫고 성자와 그 육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라.

3. 성자와 구원자가 머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또 네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 살게 된다. 그러면 또 실수하거나 자기 책임을 못 하여 또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포기하는 파멸에 부딪히게 된다.

4. 왜 포기하는가? 자기 실수로 인해서 포기하고, 자기 책임을 못 함으로 인해서 가능성을 상실하고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다.

5. 포기하는 사람들은 시간도 없고, 자료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절대 못 하니까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6. 자기가 타고 갈 열차가 떠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7. 자기는 잘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와 기술이 없으니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자는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기회를 주어 하게 하신다.

8.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누구나 포기하지 않는다. 열심히 하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밖에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포기한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9. 휴거도 마찬가지다. 첫째, '휴거'를 포기하고 사는 자들도 있다. 둘째, 휴거는 포기하지 않고 휴거되기 위해 행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

10. 운동장을 뛸 때도 처음에는 모두 1등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뛴다. 그러다가 자기 실수로 넘어진 사람은 '아예 뛰는 것을 포기'한다. 운동장을 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더라도 1등과 거리가 떨어지면, 1등은 포기하고 2등, 3등, 4등이라도 하려고 뛴다.

11. 휴거도 그러하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책임을 못 함으로 인해서 아예 "나는 휴거는 못 돼." 하며 포기하고 "나는 구원이나 받고 지옥이나 면하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 휴거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는 300선은 안 돼.” 하거나, 혹은 “나는 200선은 안 돼.” 하고, 휴거 100선만 목표하고 그저 휴거만 되기 위해 뛰는 사람도 있다.

12. 사람들은 첫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예 포기하거나 / 둘째, 하기에는 하는데 자기에게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두고서는 포기하고 산다.

13. 자기 실수로 책임을 못 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 실력을 볼 때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기는 이미 그 위치에서는 더 해도 안 된다. 자료도 없고, 힘도 없고, 가능성도 없으니 아예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자와 구원자는 포기하지 않고 죄를 고한 자는 용서해 주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으면 다시 시간을 주고, 다시 기회를 주어 하게 하신다.

14. 성자와 분체가 다시 시간과 기회를 주어 다시 할 때는 절대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자기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실수하고 책임을 못 한다.

15. 성자와 그 분체를 머리로 삼고 행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기회를 얻었을 때는 반드시 성자와 그 분체를 머리로 삼고 행해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고 약속해야 된다.

16. 자기가 못 한 것은 이미 못 하고 끝났다. 지금 휴거 때인데, 휴거 100선, 혹은 200선, 혹은 300선까지 못 하고 끝났다. 성자와 분체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서 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로 성자와 그 분체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지체가 되어서 행해야 된다.

17. 세상에서는 1000m 달리기만 해도 1등, 2등, 3등 총 3명밖에 안 뽑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1등, 2등, 3등 차원까지 오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만 명이고 뽑으신다. / 그러나 성자와 분체가 기회를 주어도 누구든지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100% 해야 된다.

18. 100% 말씀을 믿고, 100% 성자와 그 육으로 쓰는 자를 알고 믿고 행하고, 100% 죄를 회개하고, 100% 자기가 할 것을 행해야 된다. 100% 한 자는 다 뽑으신다. 그리고 휴거시키신다.

19. 삼위일체는 100% 안 하면, 절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20. 절대자와는 ‘절대’로만 통한다.

21. 삼위일체는 절대 행한 것만 인정하고 끝내신다.

22. ‘완전’이라는 글씨를 쓸 때도 ‘완전’이라고 100% 써야 ‘완전’이라는 글씨가 된다. ‘완전’이라는 글자를 ‘와전’이라고 쓰면, 이 글자는 ‘완전’이 될 수가 없다.

23.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책임을 못 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책임을 못 해서 각자 애를 태우며 하고자 했던 것도 못 한 것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다. / 그러나 성자가 사랑하시어 안타까워서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 하게 해 주셨다. / 그러니 이제는 자기가 다시 하더라도 성자와 분체가 해 준 것이 된다. 고로 이제는 성자와 그 분체가 머리고, 주인이다.

24. 두 번째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할 때는 절대 성자와 분체가 머리가 되고, 자기는 지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또 실수하지 않고 책임분담을 하여 제대로 할 수 있다. 또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하면, 그때는 ‘완전 실패’로 끝난다. 이때는 휴거되지 않고 삶 가운데 하는 일이 안 되어 망해도, 성자도 분체도 미련도 없다.

25. 사람이 뇌의 지능의 차원이 낮으면, 절대 생각이 안 나서 못 한다.

26. 뇌가 굳으면, 절대 생각나지 않아서 죽음이 코앞에 와도 못 피한다.

27. 자기 인성은 자기 뇌를 세상 쪽으로 시멘트같이 굳게 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육의 눈도 심령의 눈도 인성으로 가려져, 성자와 그 분체의 영이 와도 못 보고 불신하여 떠나게 한다.

28. 성자의 지능과 생각은 하늘에 닿아 있고, 인간의 지능과 생각은 땅에 닿아 있다. 성자의 생각 수준과 자기 생각 수준을 꼭 비교하면서 깨달아라.

29.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울면서도 인생 문제를 못 푼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웃으면서 인생 문제를 푼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란, 전능하신 성자와 그 분체의 생각대로 하는 자다.

30. 모두 ‘성자’를 자기 머리로 삼고, ‘자기’는 지체가 되어서 하고, 다 한 후에는 성자를 주인으로 삼고, 신랑으로 삼고, 성자를 모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라.

<2013년 8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31.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첫째, 성자와 분체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었는데, 본인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자기중심으로 하면, 절대 ‘파멸’이다. 둘째, 본인은 실수하고 책임을 못 하여 이미 끝난 것인데, 성자와 분체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어 다시 하게 했으니, 절대 성자와 그 분체가 해 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머리에 서나 삶에서 잊으면, 마음이 변한 자다. 마음이 변한 자는 어쩔 수 없다. 같이 살아도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

32. 성자가 그 몸으로 쓰는 자는 육적인 눈으로 보면 하찮은 육신이다. 그러나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를 중시하여 살아야 된다. 성자는 그 분체와 일체 되어 그를 통해 말씀하고 할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33. 섭리인들을 보면,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게 무섭게 한다. 그러다가 점점 열정이 식고, 마음이 식고, 믿음이 식고, 사랑이 식어 큰 불이 호롱불이 되고 만다. 이는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이 식으니,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의 길로 떠나게 된다.

34. ‘꾸준히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라.

35. ‘매일 꾸준히’ 하는 자가 되어라.

36. 섭리사에서 신앙적으로 변치 않고 ‘매일 꾸준히’ 한 자가 영도 육도 변화되어 휴거되었다.

37. ‘매일 꾸준히’ 칼을 가는 자의 칼은 절대 녹스는 법이 없다.

38. 쇠꼬챙이도 ‘매일 꾸준히’ 갈면 매일 조금씩 변화된다.

39. 영 변화, 혼 변화, 인생 변화, 자기 변화도 마찬가지다. ‘매일’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꾸준히’ 행하면, 어떤 췌덩이 같은 혼과 영이라도 다 ‘휴거의 영혼’으로 변화된다.

40. 육이 안 하는데 변화되는 영혼은 없다.

41. 산모가 배 속의 아이를 위해 먹어 줘야 태아가 변화된다. 산모는 육과 같고, 배 속의 아이는 영과 같다. 자기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 줘야 그 영혼이 변화된다.

42. 모두 각종으로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휴거되지 못했느냐? 휴거됐어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휴거 100선, 200선에 머물러 있느냐? 이는 하고자 마음먹어도 뇌가 굳어서 못 한 것이고, 몸이 연단되지 않아 마음은 원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못 한 것이다. 또 하고자 했어도 자기 실수로 못 한 것이다. 또 게을러서 자기 책임을 못 하여 못 한 것이다. 또 성자와 분체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못 한 것이다. 또 성자와 분체를 머리로 삼지 않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여 자기중심으로 하니, 실수하고 책임을 못 하여 못 한 것이다.

43. 성자가 사랑하여 다시 기회를 주니... 자기중심, 자기 교만, 자기 무지를 깨닫고, 이제는 오직 성자와 분체를 머리로 삼고 하여라.

44. 수고하고 노력하고 원해도 안 되는 원인은 성자의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기회를 줘서 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성자와 분체를 머리로 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희망에 차서 보람을 느끼며 하여라.

45.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여 휴거되는 자는 없다.

46. 세상의 것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면, 혹여 무엇이 된다 해도 성자와는 상관이 없다.

47. 성자는 <핵심적인 것>들은 성자 분체를 통해서 행하고, <간접적인 것>들은 따르는 자들을 육으로 삼고 행한다. 성자 분체가 못 하는 것은 분체가 세운 자를 성자가 육으로 삼고 분체와 함께 행한다.

48. 처음에 “성자를 머리로 삼고 그 육이 되어 행해야지! 성자 분체를 머리로 삼고 그 육이 되어 행해야지!” 하고는 막상 실천할 때는 자기 인성으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성으로서 사탄의 근성이다.

49. 매일 매시간 사사건건 성자와 분체에게 묻고, 기도하고, 답을 받고 행하는 자나(자가) 성자와 분체를 머리로 두고 사는 자다.

50.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성자와 분체를 머리로 삼고 행하는 자다.

51. 성자가 머리가 되어 행하면, 성자께서 때마다 계시해 주시니 제대로 깨달아 최고로 높은 차원으로 행하게 된다.

52. 성자와 그 분체를 머리로 삼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이 상황과 여건을 틀어 버리니, 될 수가 없다.

<2013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이 끝나면, 열이 식는다.

2. 생각을 놀리지 않으려면, 목적을 주어라.

3. 놀지 않도록 목적을 주어라.

4. 사랑은 과정적인 목적은 있어도 끝은 없다. 사랑의 목적을 다 하면, 사랑은 끝나는 것이다. 사랑을 끝까지 지속하려면, 끝이 없어야 된다.

5. 과정에서 목적이 진행된다.

6. 희망이 없는 자들은 목적을 만들어라. 목적이 희망이다.

7. 희망과 기쁨이 끊이지 않으려면, 목적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8. ‘목적’이 클수록 ‘희망’도 크고 ‘기쁨’도 크다.

9. 좋은 꿈만 꾸려 하지 말고, 생시에 좋은 목적을 구상하여라. 목적이 희망이고 꿈이다.

10. 빨리 목적을 이루고 끝내려고만 하지 말아라. 목적을 다 이루면, 그에 대한 희망도 기쁨도 없어진다. 목적을 계속 만들어라.

11.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삶을 해낸다.

12. 사랑도 할 때만 느낀다.

13. 진수성찬도 먹을 때만 맛을 느낀다.

14. 기도도 할 때만 느낀다. 말씀도 들을 때만 느낀다. 그렇다고 계속 기도만 할 수도 없고, 말씀만 들을 수도 없다. '범사에' 기도하기다. '범사에' 말씀을 생각하고 행하기다.

15. 남녀는 육체적 사랑을 하는 순간만 흥분되고 사랑을 느낀다. 그렇다고 늘 육체적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된다.

16. 신랑 되신 성자와 기도로 대화하며 사랑할 때만 흥분되어 성자의 사랑도 느끼고 성자의 심정도 느낀다.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며 대화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항상 사랑을 느끼고, 영에 사로잡혀 흥분되어 성자의 심정을 느낀다. '사랑의 생활'이다. 삶 속에서 자기 뇌를 성자의 사랑으로 꽉 채우고 살아라. 그러면 하루종일 흥분되고, 무엇을 하든지 기쁘다.

17. '목적'이 없는 자는 '희망'이 없는 자다.

18. 휴거도 목적을 두고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다. 1차 100선을 거쳐서 2차 200선으로 가게 되고, 2차 200선을 거쳐서 3차 300선을 넘어 영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

19. 휴거 100선도 안 된 자가 휴거 300선을 이룬다고 말한다. 반드시 1차 100선을 거쳐야 성공한다.

20.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서 마치 잊어버렸던 것이 뇌에 선연히 떠오르듯이 자기 뇌에 '찌르르' 하고 번뜩 깨달아지는 것은... 남녀가 극적으로 사랑할 때 흥분되어 사랑을 느끼는 것과 같다.

21. ① 말씀을 들어도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느끼는 정도는...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대화로 사랑을 느끼는 정도다.

② 뇌에 '찌르르' 하고 깨달으며 느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흥분되어 사랑을 느끼는 차원과 같다.

고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차원에 이르러야' 마치 과일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열듯이 결실하게 된다.

22. ① 성자께서 그 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만물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나, 감동을 통해서 해 주시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나 관념적으로만 아는 것은... 과일나무에서 꽃만 보는 차원이다. ② 깨닫고 느끼는 것은... 과일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는 차원이다.

23. '깨닫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24. ①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성자 본체'도 깨닫고 느끼고, '분체'도 깨닫고 느껴 행하는 것은...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몸에 사랑을 느끼는 것과 같다. ② 깨닫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남녀가 서로 눈으로 보는 것과 같다.

25. 자기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면서' 느껴야... 성자와 그 분체와 함께 '구원'도 결실하고 '휴거'도 결실한다.

<2013년 8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모를 때는 사랑해 줘도 모른다.
2. 모를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해 주셔도 모른다. 그래서 먼저는 하늘의 사랑과 그 가치를 알도록 가르쳐 주고 키우고 성장시켜야 된다.
3. 모를 때는 사랑을 100% 해 줘도 10% 정도밖에 못 느낀다.
4. 육적 사랑은.. 사랑을 받고도 바로 잊어버린다. 고로 또 사랑을 해도 모르고 한다. '시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길러서 성자를 사랑하게 하겠다.
5. 신앙도 그러하다. 모르고 하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그 위치다.
6. 매일 가르치고 행하게 해야 변화되고 옛 위치를 벗어나게 된다.
7. 부지런히 배우고 행하면서 성장하여라. 그리고 자기 책임을 하여 자기를 구원하고 휴거시켜라.
8. 성적(性的)인 자는 현재 안 한다 해도 항상 위험한 자다.
9. 휴거된 자는 뇌에서 아예 성의 개념을 제거한 자다.
10. 휴거된 자는 미완성에서 완성이 되어 버린 자다. 태아가 엄마의 태속에서 떠나 세상에 나오듯이, 미완성의 주관권을 벗어난 자다.
11. 휴거된 자는 변화되어 버려서 마치 소롯길을 대로로 만들어서 없앤 것과 같다.
12. 휴거된 자는 그 위치를 떠났기에 다시는 그 위치에서는 죄짓는 행위를 못 한다.
13. 휴거된 자는 마치 남자가 여자와 같이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간 것과 같다. 또 마치 여자가 남자와 같이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서 남자가 없는 곳으로 간 것과 같다. 고로 더 이상 이성 죄를 짓지 못하게 된 것과 같다.
14. 휴거된 자는 그 육이 세상에서도, 그 영이 영계에서도 차원이 다른 곳에 있다.
15. 휴거되지 못한 자는 죄를 회개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항상 근신하며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된다.
16. 휴거된 자는 죄의 주관권에서 떠나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만들어서 미완성에서 벗어난 자다.
17. 저마다 자기 '뇌'가 온전해야 자기 '지체'도 온전하게 쓰게 된다.
18. 머리가 되는 지도자도 자기가 온전해야 지체가 되는 따르는 자들 전체를 온전하게 만든다.
19. '기도'로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
20. '기도'로 정신이 약한 자가 강철이 되기도 한다.
21. 휴거된 자는 관리가 필요 없다.

<2013년 8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온도’는 시간에 따라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뇌의 생각의 강도’도 시간에 따라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뇌의 생각의 강도는 새벽 1~4시까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높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따라서 그 기본 터전 위에서 더 깊고 높게 좌우된다.
2. 뇌의 생각의 강도를 높여라. 기술이다. 연구다. 지혜다.
3. 육적으로 보면, 인간의 핵심 지체는 ‘성적 지체’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뇌’가 핵심 지체로서 과일이다. 뇌 과일은 아름답고 신비하다.
4. 몸은 뇌에서 일어나는 대로 반응하는 뇌 현상의 실상체다.
5. 존재물 전체를 봐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6. 가령 ‘손’을 보려면, 손목 아래로 다섯 손가락까지 전체를 봐야 손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는 것이다. ‘귀’도 그러하다. 귀의 겉 형태만 보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 않다. 귀에 속한 전체 모든 것을 봐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7. ‘신앙’도 신앙에 해당되는 전체를 깨닫고 행해야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
8. 몸 전체를 봐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 전체를 다 봐야 된다.
9. 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지를 못한다.
10. 손가락 다섯 개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그와 같이 다른 것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사용한다.
11. 개미 한 마리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무엇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물이든지,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 이 세 가지를 구상하고 창조하셨다. <월명동>도 이것을 깨달으라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다.
12. 과일 하나도 자세히 보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보고 먹으면서 연구하여라.
1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비한 세계를 가장 크게 보고 느끼도록 창조한 것은... 우주 천지 만물이다.
14. 삼위일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15. 인간 전체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만, 인간의 지체 하나하나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16. 눈 자체도, 귀 자체도, 입 자체도, 뇌 자체도 그 형상과 모양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며, 그것이 기능하고 작동하는 것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17. 만물과 인간과 모든 존재물들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함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만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보람과 행복과 사랑을 못 느끼고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모르는 자는 봐도 모른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 행복하다. 돈만 벌고 먹을 것만 있다고 행복이나. 뇌 속에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행복이다.

18. 예술에서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은 기본이다.

19. 창조주 하나님은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구상하시고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를 시작하셨다.

20. 설교도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꼭 구상하고 해 준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전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깨닫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잘 깨닫고 영이 훨씬 더 빨리 변화되어 휴거된다.

21.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을 모르고 보면, 아무 감동이 없다.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 형상적도 형상을 모르고 보면, 아무 느낌이 없다.

22. 메시아도 모르고 보는 자는 메시아를 보통 사람으로 본다.

23.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 메시아와 일체 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24.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25. 하나님과만 통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안 통하면, 구약 종교인이다. 고로 하나님과 주는 종 취급을 하면서 쓴다.

<2013년 8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중고등부들아. 다 크기 전에 빨리 만들어라. 크면 못 만든다.

2. 나무도 곡식도 크면 못 만든다. 그와 같이 사람도 어릴 때 만드는 것이다.

3. 뼈가 크면 굳어 버린다. 마음도 크면 굳어 버린다. 성장할 때 만들어야 된다.

4. 가르쳐 줘서 아는 것보다, 본인이 감동 받고 깨닫고 아는 것이 크다. 고로 모두 그같이 알게 해야 된다.

5. 너희 행위와, 너희 의와, 너희 사명을 보고 스스로 깨닫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그리 크다.

6. 가령 “저 사람이 성령님의 보이는 상징체다.” 하는 것도 가르치기보다 그 상징체가 성령님같이 품어 주고, 엄마같이 품어 주고, 성령님같이 행해야 모두 보고 스스로 알고 믿고 대하고 산다는 것이다.

7. 아무리 성령의 상징체라도 성령님같이 행하지 않으면, 그 면으로는 믿을 수 없다. 행하는 것만 믿는다. 행할 때 성령님이 더욱 밝히 증거해 주신다.

8. 가령 많은 수영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라면, 본을 보여서 뛰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증거하기 쉽고, 누가 말하면 “국가대표라서 표가 나게 잘하더라.” 한다. 만일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표가 안 나네.” 하면 증거자가 증거하기 힘들고, 모두 잘 안 믿는다.

9. 구세주도 ‘진리’를 가지고 ‘행위’를 보이면서 나타난다. 누가 말하기 전에 그가 말씀하는 것을 보고 “뛰어나구나! 다른 자가 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틀렸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고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증거자도 증거하기 쉽다.

10. ‘행위’가 권위다. 권력이다. 계급이다. 사명이다. 차원이다.

11. ‘행위’로 증거하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뇌에 꼭 차게 스스로 믿어지고, 사람들도 그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
12. 행해야 자기 파워가 세상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따르게 되고 ‘인구름’이 된다. 성자는 그것을 원하시고 목적하신다.
13. 행하는 자 앞에 가로막힌 산이 없어진다!
14. 행하는 자는 마른 땅에 샘물이 솟게 하고, 폭포수가 쏟아 내리게 하고, 호수를 만들어 배를 띄우고 뱃노래를 부르게 한다.
15. 행하는 자는 사막에 푸른 초장을 만들고 이상세계를 만들어 산다.
16. 행하는 자는 사막의 불모지를 하나님의 이상 동산으로 만든다.

<2013년 8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
2.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다.
3. 자기가 기도한 것은 ‘합당한 것만’ 하나님께 상달된다.
4.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시고 ‘합당하면’, 시간을 정하시고 도울 자를 준비시켰다가 돕게 해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5. 자기 본인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고로 ‘절대 기도를 해야만’ 들어주신다. 씨를 안 뿌리고는 곡식이 나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6. 기도를 하되, 자기 입장에서만 하면 안 된다.
7. 기도를 하되, 잠깐 하고 말면 안 된다.
8. 기도는 진정으로 간절히 애타게 하되, 끝까지 해야 된다. 3일이고, 일주일이고, 21일이고, 40일이고, 또 급할 때는 순간이라도 ‘간절히, 끝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9. 마치 시궁창으로 점점 빠져 들어갈 때 도울 자를 찾으며 애타게 부르짖으며 나오기를 원하듯, 기도도 ‘집중해서 애타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해 준다.”라는 감동이 오든지, 혹은 마음이 편하든지, 혹은 “염려 말아라.” 하고 깨닫게 되든지, 혹은 “해 주시겠다.”라고 자기가 믿어지든지 한다.
10. 기도하면, 성자도 그 육이 되는 분체도 옆에 와 있다.
11.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성자를 부르며,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자를 사랑하며, 성자가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자와 기도로 대화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12.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말씀은... 기도하면, 합당하면 준다는 법이다.
13. 지금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이 땅에 <마지막 휴거의 역사>를 이뤄야 되기에 특히 휴거에 해당되는 일이면, 서둘러서 해 주신다.

14. 죄를 회개하면 용서는 해 준다.

15.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성자의 한마디에 고한 모든 죄가 사해진다.

16. 컴퓨터게임, 술, 담배, 음란 소설, 음란물, 이성 죄 등 각종 죄를 짓고 고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용서해 준다. 그러나 이 한마디 말로 용서받으니, 일주일, 한 달도 못 가서 또 반복해서 행하고 죄를 짓는다. 그리고 나서 미안하니,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죄를 고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자꾸 찻값을 받고, 안타깝게 사탄의 유혹에 더 심하게 걸려들게 된다.

17. 죄를 짓고 고하기만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한마디로 용서하니,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짓는다. 이제는 7개월에서 1년씩 ‘죄를 안 짓는 행실의 조건’으로 신뢰와 신용을 보여 줘야 용서해 주고 죄를 사해 준다.

18. 죄를 지으면 말뿐만 아니라 행실로 회개하여라. 죄에 따라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7개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참고 견디며 몸부림쳐 기도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죄를 고하면 용서해 준다. 이같이 해야 자기가 노력한 ‘의의 행위’로 인해 죄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

19. 죄를 짓고 ‘말’로만 죄를 고하면, 행여 용서해 준다 해도 그 죄는 그냥 남아 있다.

20. ‘행실’로 의로운 조건을 세우며 깨끗함을 보여 줘야 “이제는 정말 죄를 안 지으려 하는구나.” 믿고 인정하고 용서해 준다.

21. 용서만 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3개월간, 혹은 7개월간, 혹은 10개월간, 혹은 1년간 회개하며 ‘죄 안 짓는 행실’로 조건을 세우고, 또 전도도 하여 조건을 크게 세우고 나서 용서도 해 달라고 해야 된다.

22. 3명에서 10명씩 생명을 구하는 조건을 세우고 나서 죄를 고하면, 용서하는 강도가 다르다.

23. 자기가 안 한다고 해서 용서해 줬는데 자꾸 또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 자기 행위로 성자와 분체가 자기를 못 믿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 저마다 이를 알고, 행실의 조건과 생명을 구하는 조건을 세워 믿게 해 주어야 한다.

24. 성자 분체에게 자기 죄를 고하며 하나님과 성자께 고해 달라고 한다. 그러나 성자 분체도 시대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여 의를 세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자 앞에 가야 용서를 받아 온다.

25. 만일 성자 분체가 죄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성자 앞에 가서 기도하며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과 성자는 “네가 그들의 죄를 감당하고 희생하여라. 예수처럼 그들의 찻값으로 네가 대신 죽어 줘라. 그러면 그들이 의롭게 살 것이다.” 하신다. 혹은 “네가 그 찻값을 감당하고, 예레미야와 미가야처럼 대신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아라.”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찻값을 대신했다.

26.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안 짓도록 결심하고 몸부림치는 조건을 세워야, 구원자도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조건을 세운 후에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과 성자께 고해 준다.

27. 3개월에서 1년씩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죄를 안 짓는 행실’로 조건을 세우고, 또 3명에서 10명씩 생명을 ‘전도한 공적’을 세우고 죄를 고하면, 하나님과 성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며 과거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신다.

28. ‘죄’에는 사탄이 개입하니, 엄하게 다룬다.

29.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서 ‘구원받은 영’도 없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서 ‘휴거되는 영’도 없다.

30. 죄를 지으면, 영이 사망으로 가서 꼭 죽은 꼴이 된다. 고로 오랫동안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영이 사망권에서

벗어나 살아서 나오게 된다.

31. '죄'는 영에게 '죽음'을 준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 고로 '회개'를 생명시해야 된다.

32. 자위행위도, 이성 건도, 게으름도, 혈기를 내는 것도, 말을 거칠게 하는 것도, 자기 나쁜 성격도,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정말 안 하는 행실'로 조건을 세워야 성자가 신뢰하고 용서해 준다.

33. 죄를 지었으면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죄를 안 지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자께서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34. 자기가 잘될수록 '더 신앙을 지키고 더 성자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매일 그리 살아야'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할 때 조는 것도 습관이고 버릇이다. 고쳐야 된다.

2. '몸'이 조는 것이 아니고 '뇌'가 조는 것이다.

3. 기도할 때는 앞에 한 말을 이어서 다음 말을 만들어 계속 연결해야 된다. 기도의 말이 끊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야 틈이 안 생겨서 뇌에 잡념이 안 생기고 졸지 않는다.

4. 기도하다가 뇌에 잡생각과 잡념이 들어오거나 졸음이 오면, 머리를 꼬집거나 때리면서 자극을 줘야 된다.

5. 앞의 말에서 뒤의 말을 연결해서 하는 것에 신경 쓰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리듬이 끊어지지 않으니 잡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

6. 생각의 한눈을 팔지 말아라.

7. 기도하다가 기도가 끊기고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즉시 성자와 성령님을 부르고 분체도 부르면서 그 공간과 틈을 채워라. 할 말이 없다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즉시 뇌가 잡생각을 하게 된다.

8. <뇌의 본질>은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기본으로' 잡생각을 하게 된다.

9. <뇌의 본질>은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뇌의 신경세포가 '자동적으로' 잡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

10. 뇌를 가만히 두면, 잡념이 된다. 고로 정신을 집중하여 강하게 생각하고 행해라. 그러면 절대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잠이 오지 않는다.

11. 뇌의 성질을 알고서 뇌를 썰라.

12. 아무리 졸리더라도 찬물로 뇌에 자극을 주면, 뇌는 금방 달리 방향을 돌려 작동한다.

13. 뇌에 잡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머리를 '툭' 치며 "너 뭐해?" 하면, 뇌는 즉시 방향을 돌리고 제정신을 차린다.

14. 뇌는 다른 생각을 할 때 '말'로만 "너 뭐해? 그렇게 하지 마." 해도 바로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고로 뇌가 나쁜 생각, 죄짓는 생각, 이성 생각을 하면 자기가 혼내야 된다.

15. 나쁜 생각을 할 때 '책망하면' 뇌는 바로 충격을 받고 방향을 돌린다.

16. 나쁜 생각을 할 때 ‘가만히 두면’ 뇌는 죄짓는 것을 생각하고 일을 저지른다. 결국 뇌가 나쁜 생각을 하도록 가만히 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죄값을 치러야 된다.
17. 뇌는 가만히 두면 ‘기본적으로’ 잡생각을 하니, 뇌에 대해서 알고 다스려라.
18. 뇌의 본질을 알고, 평생 자기 뇌를 조종하고 다스려 죄를 안 짓게 하여라.
19. 마음은 원치 않는데 자꾸 이상하고 나쁜 생각이 드는 원인은 뇌에 배어 있는 것들이 뇌에서 기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20. 뇌에 있는 나쁜 생각을 없애려면, 절대 자기 뇌에 ‘하나님의 말씀, 성자의 말씀, 성령의 신’을 꼭~ 채워라. 그러면 뇌의 잡생각과 잡메모리가 없어진다. 그러면 뇌를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생각하게 된다.
21. 잡초와 가시나무 골짜기였던 월명동의 잡초를 다 없애고 깨끗이 만들어 돌과 나무가 꼭 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개발했듯이, 자기 뇌의 썩은 생각들을 싹 청소하여 없애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꼭 채워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뇌를 주관하고 쓰신다.
22.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뇌가 오물통이 되었다.
23. ‘뇌가 깨끗해야’ 이성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죄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생각도 깨끗하고, 생활도 깨끗하여... 평소에 성자와 성령님과도 잘 통한다.
24. 뇌의 썩은 생각과 사상들을 싹 청소하여 깨끗하게 한 뇌에는 ‘수시로’ 성자가 보내는 생명의 말씀의 이메일이 온다. 또 성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뇌로 들려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

<2013년 8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기도하면, 평소에 생각나지 않던 것이 총명하게 생각나고 성자의 것과 영적인 것이 생각난다. 고로 ‘행할 힘’을 받고 ‘구상’을 받아서 행하게 된다.
26. 기도하지 않으면, 행할 힘이 없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성자의 뜻이 생각나지 않는다.
27. 기도하면, 성자와 통하지 않았던 것도 통하게 된다.
28. 기도하면, ‘육’도 ‘마음’도 ‘뇌’도 ‘혼’도 ‘영’도 변화가 일어난다. 고로 더욱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영이 더욱 빨리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29. 기도하면, 꿈에 혼계에 가서 ‘자기 혼의 상태’를 보고 ‘자기 영의 상태’를 보게 된다. 고로 그 상태에 따라서 ‘육’이 행하여 위기를 면하게 되기도 한다.
30. 기도해야 자기 육신의 병도 느끼고 깨닫게 된다.
31. 기도해야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꺾어도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다.
32. 기도해야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닫게 된다.
33. 기도해야 마음이 담대해지고 전도도 잘된다.

34. 기도해야 새벽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쓰면서, 최대한 영적으로 쓰게 된다.
35. 기도해야 자기 운명이 좋게 뒤바뀐다.
36. 기도해야 정상적인 신부의 삶을 살게 된다.
37. 기도해야 '자기 휴거 때'를 제대로 알고 자기가 행할 것을 급히 행하여 휴거 100선, 200선, 300선에 오르게 된다.
38. 기도해야 자신이 지난날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된다.
39. 기도해야 성자가 돕고 함께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
40. 기도해야 성자와 그 육인 분체의 심정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41. 기도하면, 죽을 위기에서도 살게 된다.
42. 기도할 때 말을 쉬지 말고 연속하고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해야 뇌에 잡생각과 잡념이 안 생기듯이, 기도하는 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도 '새벽'과 '낮'과 '밤'에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빼놓지 말고 연결시켜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중간에 틈이 생기지 않아서 생활 가운데 잡시간과 사탄 시간을 안 보내게 된다.
43. 생활 속에서 '기도의 리듬'이 깨지면, 그 시간은 모두 잡시간이 된다. 절대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생활 속에서 기도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연속 기도해야 된다.
44. 기도한 만큼 꼭 얻게 된다! 정말 기도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
45. 말씀대로 하면, 성자가 옆에 계시고 성자 분체도 살아 있으니 다 할 수 있다!

<2013년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
2. 기도는 자기를 행하게 한다.
3. 기도는 육신으로는 갈 수 없는 천국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게 한다. 고로 목적을 행하게 한다.
4. 기도는 육으로 평생 가도 못 가는 영의 세계에 자기 영을 보내어 행하게 한다.
5. 기도는 자기 영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한다.
6. 기도는 하나님과 성자께 자기 말이 들어가게 한다.
7.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
8. 기도는 꼭 죽을 곳에서 자기를 살린다.
9. 인간의 육이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된다.
10. 인간의 육이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을 주셨다. '기도'다!

11. 가령 자기 육이 평생 못 가는 곳이 있는데, 전화로는 통할 수 있다 하자. 전화를 통해 말로 하듯 하는 것이 ‘기도’다.
12. 육은 죽을 때까지 천국에 못 간다. 그러나 기도라는 말로 하면, 그 말이 합당하면, 그 말이 천국의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눈으로 보신다.
13.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자께 기도하면, 천사가 그 말을 기도 그릇에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14. 세상에서 누가 말을 하면, 뇌에 녹화했다가 전해 주어 알게 하거나, 혹은 글로 써 준 말을 갖다 주어 알게 한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그 내용을 기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보고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기도할 때의 모습과 마음이 어떠한지 녹화된 것을 보신다.
15. 천사는 하나님께 상달될 기도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상달되지 않을 기도는 아예 가지고 가지 않는다.
16. 기도하면,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즉시 전하기도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전하기도 한다. 고로 기도한 자가 기도해 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17. 기도하면, 마치 이메일이나 메일로 편지한 것이 상대방에게 가듯이 하나님께 간다. 편지하고 나서 상대방에게서 답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기도도 영적 세계의 순서를 거치고 올 때까지 꼭 과정과 시간이 걸린다.
18. 성자와 대면하는 ‘대화 기도’ 때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응답이 온다.
19.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자와 일체 됐을 때도 즉석에서 하나님과 성자와 통할 때가 있다.
20.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 따라서 그 차원이 천층만층이다.
21. 기도해도 ‘내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주셔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될 때까지 감사하며 기다려야 된다.
22. 기도하는 자는 첫째,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2013년 8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23. 지상에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많다. 선한 영, 악한 영, 각종 수백 종의 영들이 있다. 그 영들도 육신이 살아 있는 자들과 통한다. 그들과 접하여 잘해 주면, 그 영들도 돕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조금 돕는 정도다.
24.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도움을 받는데, 우상 쪽에 있는 마귀들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돕고 협조한다.
25. 세상에서도 악한 자를 섬기고 따르면, 악한 자가 돕고 그 소원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더 따르게 한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26. 우상이 되어 섬김을 받던 자가 죽고, 그 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갔다. 그런데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며 산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우상을 믿도록 꾀는 악한 영들이 돕는 것이며, 지옥으로 가기 전의 영들이 자기 쪽에 속한 사람들을 돕기도 한다. 이는 실상 미끼를 던져서 잡는 격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우리 신을 섬기니, 그 신이 돕지 않느냐.” 한다. 그들이 만든 우상 신의 주인은 지옥에 가 있어도 그 쪽에 속한 악한 영과 사탄이 어느 기간까지는 존재하니,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끼리 서로 돕는 격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는 도운 자도, 도움을 받은 자도 모두 심판을 받는다.

27. 하늘 쪽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돕고, 우상 쪽과 악한 쪽은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영들과 악한 영들이 영계에서 잠시 대기하면서 돕는다. 결국 전능자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그 영이 사망의 판결을 받고, 지옥 - 무저갱 - 음부로 간다.

28. 세상에서도 누가 자기를 돕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며 분별없이 그 도움을 받고 살다가는... 사기꾼에게 걸려 자기 것을 모두 뺏기게 된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각종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걸리면 해를 당한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서든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외에 누구라도 섬기면, 죄다. 다 속는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아도 사탄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다.” 하면서 유혹하기도 한다. 고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려면, 성자 분체와 늘 대화하며 그에게 확인해야 된다.

30. “사탄·마귀·귀신이 하나님과 성자의 이름을 남용하며 하나님과 성자를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사탄·마귀·귀신을 즉시 없애지 않느냐?” 할 것이다. 사탄·마귀·귀신이 행한 후에 심판 기간이 있다.

31. “하나님은 왜 사탄·마귀·귀신을 안 없애고 그냥 놔두어서 우리가 핏을 받고 해를 받게 하시지?” 하지 말고, 네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주력하여라.

32.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악인들도 별 영향을 못 준다.

33. 아예 악 쪽에 속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사탄·마귀·귀신과는 차원이 달라서 통하지도 않는다.

34. 자기가 악한 차원에서 사니, 사탄·마귀·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35.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유혹한다. 사람은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통할 수 있으므로 사탄은 보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꾀고 방해한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그 핏에 들지 않도록 천사가 돕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도우신다.

36. 이 세상에서도 선악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듯, 영의 세계에서든 그러하다.

37.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 시기에 의인들에게는 일점일획도 억울함이 없다.

38.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 유혹하는 자들과 사기꾼과 꾀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철저히 대하고 근신함으로 늦 성벽을 쌓는 자는 당하지 않는다. 신앙 세계와 영의 세계에서든 그러하다.

39. 자기가 사랑하는 자도 사랑할 때는 좋지만, 변질되면 원수가 되고 악인이 된다.

40. 상대가 믿고 따를 때만 생각하지 말아라. 변질되면, 그가 상대에 대해서 알았던 것을 무기로 삼고 공격한다. 고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오직 자기와 성자만 통하고 살아야 된다.

41. 고통스러워도 자기 몸이 자기를 돕고 자기 비밀은 자기만 알고 가면, 자체적인 아쉬움은 있으나 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편하다.

42. 인간은 하나도 모르고 태어난다. 인생은 수만 가지를 알아야 살아간다. 고로 인간은 살면서 육에 대해, 하늘에 대

해 배워야 된다.

43. 건너갈 수 없는 강 건너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상대가 들어줄 것이 있다 하자. ‘몸’으로는 못 간다. 고로 ‘말’로 한다. 말로 해서 합당하면, 상대가 자기 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천국까지는 빛으로 가도 150억 년 이상이 걸린다. 인간의 육신은 빛보다 훨씬 더 느리니, 천국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고로 땅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역자 천사가 그 기도를 듣고 기도 그릇에 그 말을 담아서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 하나님은 기도의 말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며, 그 기도가 합당한지 확인하신다. 그리고 합당하면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신다.

44. 인간이 급하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때를 맞춰 해 주신다.

<2013년 8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하자. 결국 무엇이 좋겠느냐.

2. 하나님과 성자의 세계는 못돼도 결국 성공하고 영원히 잘되는 세계이고, 하나님과 성자와 주를 떠난 세계는 잘돼도 결국 망하는 세계다.

3.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라. 그 사람만이 영원히 남아지게 된다. 나머지는 봄에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흘러가 버리듯, 모두 사망으로 사라진다.

4. 세상에서도 주께 붙은 자만 남아지고, 나머지 영들은 장마철에 낙엽이 떠내려가듯 사망 쪽으로 가 버린다.

5. 영적 생각이 흐려지면, 기도해라.

6.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해라.

7.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해라.

8.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해라.

9. 기도 안 하면, 문제로 변한다.

10. 기도는 답이다.

11. 기도는 나의 사랑의 여인이다. 안 하면 뺏긴다.

12. 시간은 나의 사랑의 여인이다. 안 쓰면 뺏긴다.

13. 기도를 하다 보니, 한 여인이 내 옆에서 나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 다리가 저려서 기도를 끊고 누워 있으니, 나와 사랑의 대화를 하던 여인도 누워 있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한 남자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여자는 내 사랑하는 여자다.” 했다. 어떻게 되는지 쳐다보니,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내가 신기(神技)가 있는데, 실력을 보여 주겠다. 내가 신기(神技)를 발휘하겠다.” 하고 말하더니, 상추 앞으로 변했다. 어떻게 되나 보니, 그 남자는 다시 그 여자에게 갔다. 여자는 조금 전보다 더 그 남자를 좋아하며 그에게 호기심을 가졌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의 여인이 이같이 되는구나.’ 하고, 다시 나머지 1시간을 더 기도했다. 다시 보니, 그 남자는 떠나가고 여자만 남아서 나와 사랑의 대화를 했다. 기도는 사랑의 여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여인을 귀신에게 뺏긴다. 끝까지 기도하면, 다시 기도의 여인을 빼앗아 자기 애인으로 삼는다.

14.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이라는 애인을 뺏긴다. 기도하면, ‘시간’이라는 애인을 사탄과 귀신들에게 안

뺏기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

15. 시간은 '돈'도 되지만, '자기 애인'이 된다. 시간을 빼앗아 성자와 합당하게 쓰면, 뺏는 시간마다 자기 애인이 하나씩 생긴다.

16. '천국'도 말씀대로 행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시간'도 온전히 쓰면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기도'도 기도하면서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17. 시간을 뺏기면, 희망도 기쁨도 사랑도 없는 쓸쓸한 사막과 같고, 적막한 산 계곡과 같다.

18. 매일 매시간을 뺏기다!

19. 제때 못 하면, 원숭이가 바나나를 다 따 간다.

20. 새벽 시간을 뺏기다. 새벽 시간을 빼앗아 기도하기다!

<2013년 8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을 사는 지혜와 법칙을 알고, 신앙을 순리로 하는 지혜의 방법을 알고 살아라.

2. 말씀대로 행하기 힘들 때, 말씀대로 행해지지 않을 때, 신앙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라.

3.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비바람이 치면 비바람을 피했다가, 비바람이 그치면 다시 밭으로 나가 일한다. 이와 같이 신앙도 그리하여라. 이것이 지혜의 방법이다.

4.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이 익어 거둬들일 때까지 심정을 태우고 땀을 흘리면서 일한다. 그러다 비바람이 치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날이 좋아질 때를 기다린다. 비바람이 치는데 무력으로 계속 일하면, 오히려 곡식에 해가 가기 때문이다. 그러다 비바람이 그치면, 다시 논밭에 나가서 일한다. 또 가물면 곡식이 못 크니, 농부는 물을 갖다가 준다. 그리고 잡초가 나면, 곡식 하나하나마다 잡초를 뽑아 준다. 이렇게 곡식을 가꾸면, 곡식이 점점 크고 익어서 가을을 맞아 추수하게 된다.

5.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농사를 포기하면, 얻는 것이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 가물다고 해서 포기하고 곡식에 물을 안 주고 그냥 두면, 논밭은 잡초로 뒤덮이고 만다.

6. 비바람이 치는 날과 가문 날보다 날씨가 좋은 날이 더 많다. 그때 하면 된다.

7. 농부는 비바람과 가물의 피해를 보면서도 날씨가 좋은 날이 되면, 비와서 못 하고 가물어서 못 한 것까지 다 한다.

8. 계속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잡초가 나는 것도 아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 더 많고, 바람이 안 부는 날이 더 많고, 잡초가 없는 날이 더 많다. 그때 열심히 하면 마음이 약한 농부도, 자신이 없는 농부도, 자포자기하는 농부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어 결실하게 되고, 황금별판을 만들게 된다.

9.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힘들다며 포기하지 말고, 지혜롭게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하면 된다.

10. 신앙생활 하면서 각자 '어려울 때'가 있다. 이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11. 비바람이 칠 때는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울 때'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면 된다.

12.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지는 않다. 그러니 신앙을 하며 어려울 때는 말씀도 많이 들어 놓고 기도도 하고 준비했다가,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때 열심히 못 한 것까지 다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영이 좋아하고 기뻐서 날고, 결국에는 ‘영의 곡식’을 얻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계속 변화되어 영이 구원받고 휴거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1차원 100선 휴거를 이루고, 2차원 200선 휴거를 이루고, 3차원 300선 휴거까지 이루게 된다.

13. 죄를 지으면, 그때는 할 일을 못 한다. 그러나 계속 죄짓는 날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환난이 생기고 은혜의 가뭄이 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날이 오니, 그때 못 한 것을 하면 된다. 그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전도도 하고 하늘의 일도 해야 된다.

14. 자기가 어려울 때나 힘이 없을 때는 해도 안 되지만, 그 기간을 벗어나 좋은 날이 오면, 그때 하면 된다.

15. 그러나 좋은 날이 왔는데 그때도 안 하면, 정말 큰일 난다.

16. ‘육’이 행하는 의가 영에게 가서 ‘영’이 그 의를 받고 계속 변화된다.

17. ‘영’은 신령하여 굳건하니, ‘육’이 끊임없이 하면 결국 ‘영’이 변화된다.

18. ‘육’이 포기하지 말고, 마음이 약하다고만 하지 말고, 자신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책망하기만 하지 말고, 작게라도 계속 끝까지 하여라. 그러면 ‘영’이 그 영향을 받고 생명권에서 자라나고 성장하여, 결국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영이 변화되고 휴거되고야 만다.

19.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자기 육신과 마음이 약하더라도 틈만 있으면 행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라.

20. 곡식과 과일도 한 번에 크지 않는다. 농부가 가꿀수록 점점 크고 익어 간다. 이와 같이 영도 한 번에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육신이 행하면 영은 조금씩 변화되고 커 나간다. ‘한 기간 동안’ 한 단계씩 변화되면서 자기 때가 돼야 온전히 변화되어 휴거된다.

21. 그러니 자기 육이 약해도 약한 대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영을 위해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영이 힘을 잃지 않고 “내 육신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는구나.” 하며 희망을 걸고, 영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한다.

22. 농부가 비바람이 칠 때나 몸이 아플 때는 농사를 못 지어도 날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졌을 때는 할 수 있다. 그때 쉬지 않고 하면, 가을에 100% 알곡을 얻고 과일 열매를 얻는다.

23. 날이 좋고 몸이 좋은 날에도 포기하고 안 하면, 얻지 못한다. 영의 농사도 그러하다. 포기하면 얻지 못한다. 육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기 영을 위해 행하지 않으면,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여 죽이게 되고 육신의 희망은 사라진다.

24. 환난 때 자기 마음과 정신과 행실이 약하다고 하면서 꾸짖지만 말고, 끝까지 자꾸 하여라. 매일 저금통장에 저금하듯이, 육이 매일 의를 쌓아 영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결국 작든지 크든지 영이 열매를 맺어 영원한 승리를 하게 된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영을 구원하니, ‘육신’이 환난·핍박·어려움으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혹은 ‘육신’이 주기(週期)를 따라 주저앉고 쓰러져 있는 시기에는 역사를 펴지 못하신다. 그러나 그런 때가 지나가면,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섭리사에도 역사하여 우리가 열심히 행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26. 육적 세계에서 ‘자기 육’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듯이, 영적 세계에서 ‘자기 영’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다. 그래서 힘든 것이다. 비가 올 때 기도하면 좋은 날이 되어서 행사도 하고 자기 일도 하듯이,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는 자기 육과 영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27. 사탄과 악인이 막아도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신앙’도 제대로 못 한다. 그러나 사탄도, 악한 자들도, 모르는 자들도 계속은 막지 못한다. 안 막는 날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힘을 모았다가 안 막을 때 하면 된다.

28. 자기 영혼은 자기 육신이 행하는 날만 기다린다. 그러다가 육신이 행하여 의를 쌓으면, 마치 가뭄 때 단비를 맞듯이 기뻐 뛰면서 한 단계 더 변화된다.

29. 어린아이도 크고 성장해야 변화되듯이, 영도 육이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해야 그 의를 흡수하고 크면서 변화된다.

30. 과일이 커 가면서 변화되듯이, 건물도 지어야 변화되듯이, 영도 육이 행해야 크면서 변화된다. 금방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31. <육>이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끊임없이’ 행해야 된다. ‘작게라도’ 행해야 된다. 포기하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아야 된다.

<2013년 8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32. 전능자 삼위일체는 인간을 중심하여 만사에 ‘때’를 정했다. 고로 ‘좋은 날’이 오고 ‘자기 때’가 오면, 놀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해야 된다.

33. 역사도 환난 때라서 묵이거나 시대의 쫓김으로 인해 형벌 기간을 보내게 되면, 그때는 400년씩, 4000년씩 고역 기간을 보내면서 역사를 못 펴고 그냥 지나갔다.

34. 구약 4000년 고역 기간이 지나고 좋은 날이 와서 신약 때가 되니, 매이고 묵인 것이 풀렸다. 고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성자가 그 육을 쓰고 2000년 동안 역사를 펴 왔다. 신약 2000년 동안에도 시대에 따라 풀리면 역사하고 묵이면 못 하니, 조건을 세우면서 좋은 날에 역사를 펴 왔다. <역사>는 ‘개인 확대 세계’다.

35. 섭리역사는 풀린 역사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나 섭리사적으로 가다가 비바람이 칠 때가 있다. 그때는 조건을 세우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내적으로 기반을 다진다. 그때는 해도 표가 안 난다. 비 오는 날에는 농부가 일하려고 곡식밭을 밟으면, 오히려 곡식에게 해가 간다.

36. 곤고한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자와 더욱 교통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비바람이 그치고 좋은 날이 오면, 그때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자와 함께, 사명자와 함께 행하는 것이다!

37. 자기 때가 오면, 그때는 진정 열 일 제치고 해야 된다. 그때 육과 혼과 영의 밀린 일을 하면서, 육이 영을 위해 미련 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야 환난 때 육이 못 한 것을 행함으로 영이 한 단계씩 변화된다.

38.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이성의 시험과 각종 육적인 유혹에 치우쳐 할 일을 못 했으면, 좋은 날이 오면 그때는 목숨 걸고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깨끗이 회개하고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이때 못 하면 영도 육도 더 함정으로 빠지게 된다.

39. 농부가 비오는 날은 피하고 좋은 날에 일하듯이, 홍수로 인해 냇물이 범람하면 물이 빠진 후에 건너가듯이, <신앙의 삶>도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막힐 때는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행하는 것이다. 환난 때인데 무조건 하다 보면, 지쳐서 잘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받는다.

40. 좋은 날이 돌아왔어도 안 하면 안 된다. 좋은 날이라도 때에 따라서 사탄이나 악한 자가 덮치기도 한다. 이때 “지금은 환난 때다.” 하고 참고 기다리면 안 된다. 그때는 기도하고 성자를 부르면서 싸워 물리치는 것이다!

41. 좋은 날이 왔어도 자기 육이 하지 않으면, 결국 영혼이 굶주려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권에 속하게 된다. 고

로 그 영은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후에 조건을 세워 혹여 휴거된다 해도 겨우 100선의 휴거나 이루게 된다. 그러면 천국의 근본 성인 성약성에는 못 들어오고, 천국의 최하 단계에 가게 된다.

42. 자꾸 죄를 짓는 원인은 자기 뇌가 그런 체질로 굳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계획적으로 한 기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고 행하여 뇌를 풀어 전환해야 된다. 기어이 그릇된 사고와 잘못된 생각을 뇌에서 빼내어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43. 저마다 자기 책임을 못 해서 못 한 것, 기술이 없어서 못 한 것, 실력이 없어서 못 한 것, 게을러서 못 한 것, 시간이 없어서 못 한 것이 있다. 성자가 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었으니, 좋은 날이 오면 기필코 해야 된다.

<2013년 8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인간의 삶의 하나님의 법칙이다. 동물이든, 만물이든, 사람이든 행한 것만 되어 있다.

2. 행하지 않은 것은 동물이나 만물이나 사람이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되어 있지 않는다.

3. 자신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되어 버리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

4. 자신의 선악간의 행위대로 자기가 선한 자, 혹은 악한 자가 되어 버린다. 욕도 그러하고, 마음도 혼도 영도 그같이 되어 버린다. 누구나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자기 행위대로 받도록 하나님이 일점일획도 빠지 않고 행위대로 주신다.

5. 전능하시어 힘 있는 자 성자와, 구원하는 구원자가 ‘힘과 능력’을 주고 ‘할 수 있는 지혜와 생각’을 주어 하게 하신다.

6. (어떤 능력을 주시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의 능력이다. 알고 행하는 행실의 능력이다.

7. 행해도 아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다.

8. 악인의 뇌와 마음에는 악이 차 있어서 선을 모른다. 악을 비워야 그 눈과 마음으로 선이 보인다.

9.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선의 주관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 선한 자는 선한 빛이 나서 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악한 자는 어둡게 보여서 악한 자라는 것을 안다.

11. 선의 세계에서는 악을 소멸시키고, 악의 세계에서는 선을 소멸시킨다.

12. 선끼리 모여 살고, 악끼리 모여 산다. 욕계도 영계도 동일하다.

13. 상천하지의 전능하신 절대 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선의 존재자’이다. 고로 악을 없애고 멸하신다. 악은 영원히 세세토록 ‘타는 것’으로 정하셨다.

14. 자기 행위로 인해서 자기 체질이 그릇되게 굳고, 자기 마음과 행위가 그릇되게 굳어 버린 자는 큰일을 낼 자다. 어서 고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부패되고 썩어 들어가는 자가 되니, 큰일 난다. 망한다. 욕도 영도 영원히 망한다.

15. 하나님의 법칙을 떠난 자는 그 마음도 혼도 영도 악하게 되어 버렸다.

1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믿지 않고 스스로 선하게 살아도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선한 편에서 선한 행위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 뿐이지, 그 영은 구원받지 못한다.

17.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선악간의 자기 행위대로 되어 버린다.

18. 어떤 자는 자기 악한 행위대로 욕과 마음과 혼과 영이 짐승이 되어 버렸다. 어떤 자는 자기 선한 행위대로 욕과 마음과 혼과 영이 천사같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어 아름다운 신의 형체가 되어 산다.

19. 자기 뇌의 형체가 그릇되게 변한 자는 큰일 난다. 때가 지나면, 그쪽으로 완전히 굳어 버려서 그릇된 형체의 사람이 된다. 고로 욕도 그 형체대로 평생을 살고, 영도 그 형체대로 영원히 살아야 된다.

20. 자기 뇌의 형체대로 인생을 사니, 편하고 좋다. 그러나 필경은 자기영이 뱀이 되어 살고, 온갖 짐승이 되어 살고, 악마가 되어 살고, 지옥·음부·무저갱에서 갖은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 지옥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된 것이다.

21. 계획적으로 천국 쪽으로 살아야 된다. 고로 욕도 영도 구원해야 된다.

22.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확인하듯, 수시로 의학적으로 자기 건강을 확인하면서 치료하듯, '매일 자기 행위를 보고서' 자기 욕과 혼과 영을 검진하고 고쳐야 된다.

2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자기를 만들기다! 자기를 만든 대로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다.

24.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자기가 선악간의 행위대로 만드는 대로 된다.

25.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만들어진다.

26. 자기 악한 행위대로 악하게 변화되어 악한 자가 돼 버리고, 자기 선한 행위대로 선하게 변화되어 선한 자가 돼 버린다.

27. 음식을 먹는 대로 그 체질이 돼 버리듯, 자기 행위대로 선악간에 그런 자로 변한다.

28. 습관이 되면 뇌가 굳어서 100% 그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29. 악이 습관이 되어 뇌가 악으로 돼 버리면, 그 욕도 악을 행해야 편하고 좋다. 그때는 전혀 악을 악으로 느끼지 않는다.

<2013년 8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의 몸으로는 한 가지 일밖에 못 하고, 하나의 뇌로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

2. 이성의 행위를 하는 몸이라도 그 몸이 성자께 가 있으면 이성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성의 생각을 하는 뇌라도 그 생각이 성자께 가 있으면 이성 생각을 못 한다.

3. 시골에서 일하다가 여행을 가 버리면, 그 몸은 일을 못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몸으로는 한 가지 일밖에 못 하고, 하나의 뇌로는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 고로 몸과 뇌가 죄 안 짓는 세계로 가야 죄를 안 짓게 된다.

4. '육신'이 자꾸 죄를 짓고 '뇌'가 자꾸 포기하고 안 하면, 영혼을 못 구한다. 회개하고 자꾸 영을 위해 욕이 의를 행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켜야 된다.

5.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면, 농부는 농사일을 못 한다. 그러나 날이 좋아지면, 밭에 나가 일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다가 또 비가 오면 일을 못 한다. 그러다가 비가 개면 다시 일하여 곡식과 과일나무를 가꾸는 것이다. 그래야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이 약해서 환난의 비바람이 칠 때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못하여 자기 영을 위해 살지 못해도 환난이 그치면 회개하고 또 영을 위해 일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키고 키워서 기어 이 완성해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면, 영이 안 죽는다.

6.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고 아예 일을 안 하면, 밭과 과일나무에 잡초가 쌓여 곡식이 다 죽어 버리고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환난 때문에 육신이 약해져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 버린다. 환난 중에 육신이 약해져서 죄를 짓고 의를 행하지 못했어도 회개하고 영을 위해 살아서 영을 변화시켜 구원해야 된다. 그래야 마음과 혼이 살아서 영과 일체 되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7. ‘육’이 포기하면, ‘영’이 포기된다.

8. ‘육’이 포기하면,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망한다.

9. 과일나무에 병이 들고 기대가 어긋났다고 포기하면, 과일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이 ‘육’이 약하다고 포기하면, ‘영’을 못 얻는다.

10. <영>은 ‘육신의 의롭고 합당한 행위’만 받고 산다.

11. <혼>은 ‘육신의 선악간의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산다.

12. <혼>은 ‘육신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의 영향’을 받고, <영>은 ‘육이 행한 의로운 것만 흡수’하고, ‘육의 불의한 행위’는 싫어하고 받지 않는다.

13. 혼이 육신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의 영향을 받는 원인은 혼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14. ‘불의한 영’이 되면, 그때는 <영>도 불의한 것을 행하는 육과 일체 되어 불의를 행한다.

15. 영이 불의한 영이 되지 않았을 때 육이 불의를 행하면, 영은 불의를 싫어하고 거부한다. 그러다가 영이 불의의 영이 되어 변질되면, 영도 불의한 일을 좋아하며 행한다.

16. 사람도 처음에는 악한 것은 싫어하고 동참하지 않는다. 그때는 불의한 말이나 악평도 싫어한다. 그러다가 자신도 판단을 못 해서 악을 선으로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자기도 불의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된다. 그때부터는 악한 말도 옳다고 하며 받아들인다. ‘영’도 그러하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

<2013년 8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마치 날개 달린 날짐승 같아서 잡으면 못 날아가고, 놓으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2. 시간은 잡고서 썬야 시간이 날아가지 못한다.

3. 시간은 그냥 놔두면, 필요 없이 계속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

4. 시간을 잡으려면, 그 시간에 합당한 일을 하여라.

5. 그 시간에 놀거나, 합당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자는 시간을 날려 보내는 자다. 잠자면서 시간을 날려 보내고, 필요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날려 보낸다. 고로 허송세월 하게 된다.

6. 성자가 주신 축복 중에서 큰 축복은 ‘시간을 준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라. 그 시간으로 자기 소원을 위해 수고하며 희망을 이루는 것이다.

7. 성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는 시간을 다 뺏긴다. 그러면 성자도 시간의 축복을 안 주신다.
8. 성자가 주신 시간을 가지고 자기중심으로 자기 주관으로 쓰면, 시간의 축복을 가지고 헛수고하는 자다. 시간을 오직 성자의 뜻대로 쓰고 살아야 그 수고가 길이길이 남아진다.
9. 시간을 다스리면 사탄도 다스리고, 자기 자신도 다스리고, 모든 자들도 다스리게 된다.
10. 어떤 사람은 거액의 시간을 푼돈을 벌기 위해 쓰고, 어떤 사람은 거액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그냥 넷물처럼 흘러보낸다.
11. 거액의 시간에 생명을 구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고, 말씀 들은 것을 행하여라!
12. 시간은 헛된 데 쓸수록 점점 더 험산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
13. 성자와 분체와 같이 일체 되어 살면, 자기 시간을 헛되게 쓸 수가 없다.
14. 시간을 온전히 쓴 자는 얻을 것을 얻고, 시간의 가치를 더욱 잘 알고, 그 시간에 더 좋은 것을 행하여 점점 더 많이 얻는다.
15. 고생돼도 시간을 얻어야 된다.
16.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 시간을 잡아라! 그 시간을 가지고 전심으로 성자를 쫓아라!
17. 시간은 돈이다. 황금이다. 하지만 그 시간에 황금을 캐야 시간이 황금인 것이다.
18. 작은 것을 크게 보면 못 잡는다. 큰 것을 작게 봐도 못 잡는다.
19. 자기 뇌에서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된다.
20. 치타처럼 순간 빨리 뛰어야 순간 잡을 것을 사냥한다.
21. 하느냐, 안 하느냐는 뇌의 순간의 판단에서 결정된다.
22. 성자는 시간이다. 성자를 양손에 잡아야 된다.
23. 성자를 잡으려면, 성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24.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날아가는 시간도 잡고, 남이 버리는 시간도 잡아서 쓴다.
25. 어떤 사람은 귀한 시간을 가지고 사망길로 가는 데 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26. 그 길의 목적지는 지옥인데, 몰라서 희망에 차서 그 길을 가며 인생을 산다.
27.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로 사는 길은 결국 지옥길이다. 성자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대로 사는 길이 고생돼도 결국은 천국길이다.
28. 할 수 있으면 많이 해야 전체가 얻을 것을 얻게 된다.
29. 시간을 귀히 쓰지 못하면 모두 뛰어서 채워야 한다.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시간을 쓰게 된다.

<2013년 8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30.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귀하고 중하다.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하다.

31. 시간을 욕을 위해서만 쓰면, 땅바닥을 면치 못한다.

32. 시간을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영을 위해 써라.

33. 하나님은 한 인생에 '일생'이라는 시간을 딱 한 번 주신다. 축소시켜 볼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다.

34. 저마다 모두 바쁘게 살고 보람 있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인생을 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시간을 쓰고 산다.

35.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시간'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고로 영원히 남는다.

36.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과 욕을 위해서 쓴 시간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쓴 시간만큼도 값이 안 나간다.

37. 영계에서도 신령하게 시간을 써야 적은 시간을 엄청나게 쓰게 된다.

38. 욕의 시간은 너무 짧아서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내지 못하고, 욕의 시간으로는 너무 수준이 낮아서 그 높은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 영이 날아가서 그 높은 영의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된다. 욕은 못 간다. 욕의 시간으로는 땅에 속한 것만 할 뿐이다.

39. 시간을 성자와 함께 쓰는 자는 시간의 지혜를 받은 자다.

40. 미련한 자는 벌이 옷 속에 들어가서 자기 살에 붙어 다니면서 자기를 쓰는데도 벌에게 쏘인 데만 약을 바르지, 옷을 벗을 줄은 모른다. 미련한 시간을 보내는 자도 그러하다.

41. 옷을 벗어서 자기 살에 붙어서 쏘는 벌을 잡아 죽이는 자는 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자와 같다.

42. 미련한 자는 땅벌 집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벌이 쏘니, 계속해서 더 기도만 한다. 그러다 땅벌이 온몸에 붙어서 쏘니, 그제야 못 견디고 기어 나온다.

43. 미련한 자의 행위로 땅벌이 성이 나서 지혜로운 자까지 쫓아다니며 쏘려 한다.

44. 미련한 자는 미련한 행위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한다.

45. 미련한 자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46. 욕심은 미련함이다. 고로 죄를 지으면 또 짓게 된다.

47. 늦으면 늦은 대로 할 일을 꼭 해야 된다. 늦었다고 씻을 것을 안 씻는다고 해서 씻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꼬깝하고, 머리와 온몸이 간지럽다. 늦은 대로 씻고 닦아야 된다.

48. 미련한 자는 미련한 행위와 죄로 인해 사고가 난 후에야 자극을 받고, 그나마 안 죽은 것으로 만족한다. 지혜로웠으면 아예 그 엄청난 해를 안 받았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49. 지혜는 하나님이다. 성자이다. 성자가 보낸 자다.
50.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이고, 저 세상은 영의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영의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1. 사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관심을 가지고 행해 주는 것이다. 관심을 잊으면, 사랑을 잃는다.
52. 영의 세상의 삶도 관심을 가져야 영의 세상을 잊지 않고 그에 해당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영이 영의 세상에서 살게 된다.
53. 알고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54. 사람이 '마음'으로 누리고 사는 것과, '몸'으로 누리고 사는 것 두 가지가 있다.
55. '몸'으로 못다 누리는 것은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다.
56. 몸으로만 누리려 하지 말아라. 천국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몸으로 누릴 수 없다. 마음으로 누리며 마음 천국을 이뤄야 된다. 그리고 영을 만들어 영으로 천상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57.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살기만 하면 되게 해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고 창조주와 같이 살지 않는다. 고로 마음으로 조금 누리다가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다.
58.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해 주면, 다 해 주신다. 무엇을 만들어 주면, 아주 온전하게 만드신다. 만물도 그러하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쓰면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온전하게 만든 것을 쓰면서도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59. 하면 순간 할 일인데 하루, 이틀, 일주일 동안 안 해서 한 달씩이나 있다가 한다.
60.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같이 행동하여라. 그러면 순간 할 수 있다.
61. 하나님은 만물도 말씀도 온전하게 만들어서 주신다. 고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안 할 뿐이다.
62. 사람이 온전한 것을 쓰면, 온전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63.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계획적으로 목적을 세우고 생각하고 행해야 온전하게 된다.
64. 아무리 미끄러운 빙판이라도 앉아서 조심스럽게 가면 안 넘어진다.
65. 고생돼도 안전하게 가자!

<2013년 8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상 - 중 - 하> 차원의 삶이다. 너는 어느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느냐.
2. 자기 재능을 가지고 최첨단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자는 <상적 차원의 삶>을 사는 자다.
3. 보통으로 행하며 사는 자는 <중적 차원의 삶>을 사는 자다.

4. 마지못해 되는 대로 행하며 사는 자는 <하적 차원의 삶>을 사는 자다.
5. 월명동의 야심작, 호수, 건물, 나무 조경 등 모든 것은 그때 현실에 처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었다. <상적 차원>에서 행했다.
6. 사람이 ‘상(上) 차원의 삶’을 살 때도 있고, ‘중(中) 차원의 삶’을 살 때도 있고, ‘하(下) 차원의 삶’을 살 때도 있다. 어느 때는 ‘상 차원의 삶과 중 차원의 삶’을 섞어서 살고, 어느 때는 ‘중 차원의 삶과 하 차원의 삶’을 섞어서 살기도 한다.
7. 항상 ‘상(上) 차원의 삶에 도전’하며 살아라.
8. 매일 자기 때에 행해야 얻는다.
9. 매일 자기가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 철저히 행해야 ‘자기 마음의 근본’인 <뇌>가 변화되고, <뇌 체질, 몸 체질>이 뒤바뀌게 된다.
10. 뇌에 암이 있어서 수술하는 사람과 같이 그릇되게 체질이 된 ‘뇌’를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변화무쌍하게 변하지 않고, 딱 마음을 잡고 마음먹은 대로 행하게 된다.
11. ‘뇌 수술’은 계획적으로 좋은 것들만 보고 듣고 행하고, 계획적으로 전능자 하나님과 구세주 성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뇌와 몸’이 변화되고 체질이 바뀌어 수술한 것이 된다.
12. 뇌 체질이 좋게 바뀌면, 그제야 마음·정신·생각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상적 차원’으로 변화되고, 아이큐도 평소보다 20~30이 더 높아진다. 고로 자기 할 일을 할 때, 자기 재능을 100% 발휘하고 힘을 다해 노력하면서 행하는 삶으로 즉시 변화된다.
13. 뇌와 몸을 단련하여 고쳐 놔야 마음먹은 대로 행해진다. 고로 쉽게 휴거의 삶이 살아진다. 고로 바로 휴거 차원에 도전하여 휴거에 들어가게 된다.
14. 마음으로는 좋아서 믿고, 마음으로는 휴거되기 원하여 행하고 싶으나, 마음이 자꾸 변한다. 그 원인은 ‘뇌’가 체질적으로 굳어 있기 때문이며, ‘몸’이 단련되지 않아 약하기 때문이다. 고로 ‘뇌와 몸’을 단련하여 고치라는 것이다.
15. <천국>은 최고로 차원 높은 ‘상 차원의 세계’이며, <낙원>은 ‘중 차원의 세계’이며, <선영계>는 ‘하 차원의 세계’다.
16. 첫째, 시대의 차원대로 / 둘째, 자기 육의 삶의 행위대로 혼과 영이 변화되고 일체 되어 <천국 - 낙원 - 선영계>로 구분되어 각각 해당되는 곳으로 간다.
17. <천국>은 ‘상(上) 차원의 세계’로서 새 시대 성약역사로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 안에서 ‘상 차원의 삶’을 살아 성자의 신부가 된 자들이 간다.
18. 세상에서도 <육>이 최고로 최선을 다해 ‘상 차원’의 삶을 살아야 그 <영>이 ‘상 차원’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19. 최선을 다해야 ‘상(上) 차원 세계’에 살게 된다.
20. 최선을 다해 상 차원으로 행하면, 거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21.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무한대로 발전하도록 창조하셨다. 고로 상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행하면 굳은 ‘뇌와 몸’이 풀려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22. ‘뇌’를 사용하지 않고, ‘몸’을 사용하지 않으니, 무엇을 들어도 기억력이 흐려져 머릿속에서 바로 사라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구상하는 능력이 없고, 삶의 생각과 행위의 차원이 낮아진 것이다.
23. 자기의 수준 낮은 차원대로 수준 낮은 TV, 컴퓨터게임, 음란 소설, 음란물, 세상 문화, 세상 환경, 이성애 빠져서 그것이 좋다고 만족하면서 웃고 깔깔댄다. 그러면서 수준이 높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은 별로라고 생각하며 등을 돌린다.
24. 손도, 발도, 입도, 눈도 잘 안 쓰고 기본만 사용하면, 보통 차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각 지체의 특성대로 최고로 사용하면, 상적 차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25. 이와 같이 ‘뇌’도 마찬가지다. 자기 ‘뇌’를 기본만 사용하면, 보통 차원에서 살게 된다. ‘뇌’를 개발하여 차원을 높여 최고로 사용하면, 상적 차원에서 살게 된다.
26. ‘뇌’를 개발하고 차원을 높이려면, 매일 최선을 다해 행해야 된다.
27. 기도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28. 말씀을 전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29. 시간을 지키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0. 말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1. 관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2. 말씀의 근본을 아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알아라.
33. 휴거를 두고 행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행하여라.
34. 설교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도, 제스처를 하는 것도, 띄어서 읽기를 제대로 하면서 외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5. 성자와 교통하고 사랑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6. 섭리사 안에서의 대인 관계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7.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8. 성자 외에는 아무에게나 마음 문을 안 따 주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39. 이성의 생각과 행위를 다스리는 것도 상적 차원에서 하여라.
40. ‘상(上)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야 아예 ‘중(中) 차원, 하(下) 차원’으로 가지 않는다. ‘상 차원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최선을 다해 도전하여라!
41. 사람은 저마다 그 날 행할 것을 행하면 얻고, 행하지 못하면 못 얻고 그냥 끝난다. ‘상 차원’으로 살면, 은을 얻던

자가 금을 얻게 된다.

42. 매일 '상 차원'으로 판단하고 행해야 변화된다.

43. 성령을 받고 늘 교통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

44. 자기 성격 고치기를 '상 차원'으로 감행하여라.

45.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도 '상 차원'으로 하여라. 회개하지 않고 성자와 분체를 속이면, 구원과 휴거는 없다.

46. 자기 몸이니, 자기가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는 만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축복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47. 성자의 이름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악에 넘어가지 말아라. 악평은 사탄이 악평자들의 욕신을 쓰고 하는 것이니, 악평 글과 말은 100% 불신하여라. 이단 종교인들을 불신하고 완전히 외면하고 살아라. 그래야 욕도 혼도 영도 하늘나라에 속한 '상(上) 차원'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48. 감사생활도 '상 차원'으로 하여라.

49.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만큼 축복을 받는다.

<2013년 8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50. 저마다 최선을 다해 행하면 '상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당장 편하려고 인생을 보통으로 살아간다. 그러니 자기가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51. '상 차원'으로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면, 처음에는 힘들고 고생된다. 그러나 행해 놓으면, 삶 속에 기쁨과 희망이 항상 일어나게 된다.

52. 성자는 천국으로 휴거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더 역사하신다.

53. '가능성'은, 성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자는 이미 모두 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휴거되는 말씀을 주셨고, 휴거되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돕고 역사해 주셨다.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은 인생들 각자가 해야 된다.

54. 자기가 최선을 다해 행하지 않으니, 가능성 없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55. 성자는 '상 차원의 세계'에 있다. 고로 '상 차원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성자를 못 느낀다. 고로 성자를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성자와 교통하지도 못한다.

56. 최선을 다해 '상 차원의 삶'을 사는 자가 성자를 만나 대화하고 교통하며 사랑하며, 성자와 동행한다.

57. 사람이 행하되, 어느 차원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받는다. 행하되, 어느 차원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력도 다르고, 얻는 것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고, 미래에 약속되는 것도 다르다.

58. 최선을 다해 '상 차원'으로 행하면 행할 때는 힘들고 고생되지만, 행해 놓으면 위력이 크고, 얻는 것이 크고, 희망이 크고, 좋은 미래를 확실히 약속받게 된다.

59. '상 차원'으로 행하는 자는 <금메달과 같은 삶>을 살고, '중 차원'으로 행하는 자는 <은메달과 같은 삶>을 살고, '하 차원'으로 행하는 자는 <동메달과 같은 삶>을 산다.

60. <구약역사>는 ‘하 차원’이다. <신약역사>는 ‘중 차원’이다. 지금 이 시대에 ‘휴거’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성약역사>는 ‘상 차원의 세계’이다. 고로 꼭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상 차원’으로 행하며 살아야 ‘상 차원 세계의 주인’이 된다.

61. 영계도 ‘하 차원’의 <선영계>, ‘중 차원’의 <낙원>, ‘상 차원’의 <천국>으로 구분된다. 저마다 세상에서 욕이 행하는 대로 영이 변화되어 천국, 혹은 낙원, 혹은 선영계로 각각 구분되어 가게 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법이다. 이 법은 못 고치니, 인생들이 고쳐 행해야 된다.

62. 첫째, ‘뇌’를 고치고 / 둘째, ‘몸’을 연단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욕신이 약해서 행해지지 않는다.

63.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삶으로 ‘뇌와 몸 체질’을 개선하여라. 그래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행해진다.

64. 성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 정말 하고자 하는 자, 세상의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등을 돌리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 구원자와 일체 되는 자를 미련 없이 휴거시켜 그에게 천국의 황금성을 주신다.

65. 성자는...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살 영들을 천국의 황금성에 들여보낸다.

66. 세상에서 욕이 살 때, 진실로 진정으로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고 그를 따라 행하고 산 자들의 영만 가는 세계가 천국 황금성이다.

67. 휴거되려면, 죄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100%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100% 분체와 일체 돼야 한다. 휴거되기 위해 사랑으로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68. <자기 휴거의 때>가 지나면, 영이 휴거는 안 된다. 영이 휴거의 영이 되어 휴거돼야 천국의 황금성에 갈 수 있다. 영이 휴거되지 못하면, 그동안 자기 욕이 행한 대로 자기 영이 그 급의 영의 세계에 갈 뿐이다. 영계에 가서 영이 조건을 세워서 휴거되는 일은 없다. 아예 지금, 6000년 만에 딱 한 번, 이 시대에 성자가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 성자가 그를 성자의 몸으로 삼고 행할 때 이때뿐이다.

69. <자기 때>는 짧다. 성자와 분체와 가까이하는 자만 자기 때를 알고 행한다. 가까이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휴거되기 쉬운 자다.

70. 성자와 딱 붙어 일체 되기다!

71. 꼭 휴거될 자인데,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아서’ 안타깝게 휴거 바로 밑 선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 많다.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마지막 결승선에 왔을 때, 더 최선을 다해서 뛰지 않느냐. 지금이 그때다! 그런데 지금 이때 마지막 선을 넘어올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 꼭 휴거될 자인데도 안타깝게 휴거 밑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 힘을 써라!

72.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상 차원’으로 행해야 되는 이때다!

<2013년 8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저마다 자기의 이름이 있듯이, 뇌의 이름을 ‘마음’이라 지었다.

2. 이름을 가지고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뇌와 몸을 연단하여 몸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으로는 자기를 못 다스린다. 뇌로 다스려라.

3. 뇌가 고장 나면, 마음먹어도 안 된다.
4. 뇌 단련, 몸 단련을 제대로 하여 뇌와 몸을 만들면, 마음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5. 뇌의 작동에 따라서 마음이 발생한다. 뇌 체질 고치기다.
6. ‘뇌’가 굳어 있으면, ‘마음’도 굳어 있다.
7. 마음은 원(願)인데 안 되는 원인은 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육신이 굳어 있기 때문이다.
8. 마음먹고 결심해도 변화무쌍하여 금방 변하는 원인은 뇌가 그렇기 때문이다.
9.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잡아?” 한다. 마음은 ‘뇌’에서 파생한다.
10. 뇌에서 오는 파장이 마음이다. 고로 ‘뇌’를 잡아라.
11.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 ‘마음’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고, ‘몸’도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된다.
12. 뇌의 확대체는 몸이다. 고로 몸의 행위를 보면, 뇌의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안다.
13. 뇌가 썩고 고장 나 있으면, 마음먹고 해도 안 된다.
14. 뇌가 굳어 있으면, 아예 제대로 생각도 못 하고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 뇌를 쪼개서 수술해야 된다. 어떻게? 전능하신 성자의 시대 말씀을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행하면서 뇌 체질을 수술하기다. 그러면 마음먹은 대로 된다.
15. 마음과 정신이 없어서 금메달을 못 딴 것이 아니다. 마음은 원해도 몸이 안 따라 줘서 금메달을 못 딴 것이다.
16. 세계 역기 대회에서 마음이 없어서 역기를 못 들겠느냐. 몸이 약해서 못 든다.
17. ‘뇌’가 약하고 ‘몸’이 약하면, 마음이 원해도 안 된다.
18. 체질을 개선하여 뇌와 몸을 정상으로 만들면, 마음도 정상이 된다.
19. 몸이 아프면, 마음이 막강해도 안 해진다.
20.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강자가 된다.
21. 마음먹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적다. 뇌와 몸이 약해서다.
22. 천국에 가기 싫어서 못 가냐?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뇌’가 굳고 ‘몸’이 굳어서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못 간다.
23. 어디까지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른다. 한계선을 그어 줘야 안다.
24.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 문화인지, 생활인지 모르고 행하며 산다.
25.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데, 사람들은 문화나 생활로 알고 행하며 산다.
26. 육체 사랑의 세계도 사람들은 사랑의 문화로 생각하고 행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대

말씀으로 육도 영도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육체 사랑을 하는 것이 죄다. 고로 다 심판하신다. (참고 : 육체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대 말씀으로 육도 영도 성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과 해야 죄가 아니다.)

27.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다니느냐. 아니다. ‘뇌’로 돌아다닌다. 뇌를 빼면, 못 돌아다닌다. 뇌에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28. 뇌를 빼놓고 돌아다니는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다.

29.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뇌’에 있다. 성경에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는 뇌를 마음이라 한 것이다. 뇌가 있어야 마음이 발생하고, 뇌가 있어야 몸을 움직이며 작동시킬 수 있다. 고로 생명의 근원은 ‘뇌’다.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활의 체질이다.

2. 자기 평소 생활로 자기와 싸우게 된다.

3. 자기의 평소 생활이 자기와 겨루는 적이 되어 싸우게 된다.

4. 자기가 평소에 못 한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잘못 생각하고 행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 고로 자기 평소 생활이 자기와 겨루는 적이 되어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고로 생활의 체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5. 저마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생활’로 뇌 체질, 몸 체질을 온전히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어떤 불의한 것을 보거나 들어도 순간 마음은 동한다 해도 뇌가 성자의 말씀으로 체질이 돼서 불의한 짓을 못 한다. 마음은 원해도 몸이 약하면 못 하듯, 마음은 원해도 뇌가 온전히 만들어졌으면, 불의에도 악평에도 안 넘어간다.

6. 뇌를 ‘성자의 말씀’으로 반석같이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7. 몰라서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알고 행한다.

8. 사람은 좋다는 것을 알면, 힘들어도 기어이 행한다.

9.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다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재산에 손해가 가고,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어떻게 해서라도 행하지 않으려 한다. 고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다! 그래야 나쁜 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행하지 않는다.

10.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면 사랑에 해가 된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후에 네 육이 지옥 같은 죄의 고통을 받는다. 네 영은 영원히 사망에서 고통받는다.” 해도 자기가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뇌가 옳다고 가동되어 행한다.

11. 짠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이 좋다고 하며 잘 먹는 원인은 그 뇌와 몸이 그같이 체질이 됐기 때문이다. 고로 뇌에서 좋다고 판단하고 먹으니, 먹을 때 흥분하며 희열을 느낀다. 짠 음식, 매운 음식, 단 음식은 자극적인 것으로 흥분되고 희열을 느끼는 음식이다. 고로 먹으면 좋으니, 먹는다. 그러다가 지나치면, 결국 병에 걸려서 각종으로 고생하고 죽기까지 한다.

12. 육적 사랑과 향락을 즐기고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 취할 때는 좋다.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니 좋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법을 벗어난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각종 형벌을 받게 된다. 회개하면, 죄로 인한 형벌을 받고서 죄에서 벗어난다. 고로 올바르게 알려 주시다! ‘교육’은 알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

13. 뇌 체질은 몸 체질이 되게 하고, 마음 체질이 되게 한다.

14. 마음은 원이로되, 뇌와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못 한다. 뇌와 몸을 정상으로 고쳐 놓고 완성해 놓으면, 마음에서 불의를 생각해도 불의가 안 행해진다. 고로 가르쳐 주어라!

15. 고장 난 시계를 고쳐 놓으면, 시계가 고장 난 짓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시계를 뇌로 보아라. '뇌'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순간 불의한 것을 보고 듣고 그릇된 행위를 하고 싶어도 뇌가 금세 분별하고 안 하게 된다.

16. '의'로 강하게 굳어진 뇌는 마음에서 불의를 행하고 싶어 해도 안 하게 한다.

17. 뇌와 몸을 담배나 술을 안 먹는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술과 담배를 공짜로 줘도 안 하게 되고, 전혀 생각도 안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자의 진리와 사랑과 의>로 뇌와 몸이 체질화되면, 이성의 사랑과 불의를 행할 기회를 줘도 안 행해진다.

18. 몸의 핵인 '뇌'와, 뇌의 전개체인 '몸과 마음'을 <성자의 진리와 사랑과 의>로 체질화해라. 그러면 세상의 것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쉽게 이긴다.

<2013년 8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은 쉽다. 몸이 어렵다.

2. 마음은 생각만 하면 되기에 쉽지만, 몸은 직접 해야 되기에 어렵다.

3. 마음은 천 리 길을 1초에도 몇 번씩 오고 가지만, 몸은 직접 가야 하기에 한 세월이 걸린다. 고로 마음은 쉽지만, 몸이 어렵다.

4. 몸을 연단하여라.

5. 천국은 마음의 세계가 아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다. 고로 몸으로 실천하여 그 의로 영을 변화시켜 영이 가는 세계다.

6. 세상에서도 실제 얻을 것은 마음으로만 하면 못 얻는다. 실제로 육이 실천해야 얻는다.

7. 누구나 마음은 원한다. 그 표준은 '몸의 실천'이다.

8. 마음은 육체가 싸고 있는 뇌에서 발생한다.

9. 뇌가 마비되면, 마음의 기능이 없어진다.

10. 뇌가 작동이 안 되면, 생각이 안 된다. 고로 뇌 문제다.

11. 기계도 고치지 않으면, 기능이 안 된다.

12. 좋은 일을 두고 안 한 것이 마음이나, 몸이나. 마음은 항상 원했다. 몸이 안 한 것이다.

13. 새벽에도 마음은 일어나 기도하기 원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되면, 몸이 피곤하니 못 일어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다.

14. 몸의 피곤이 풀리면, 자다가도 일어나진다. 고로 몸이 피곤하지 않게 일찍 자고 피곤함을 잠으로 풀어 줘라. 그러면 일찍 잠에서 깨져서 몸이 행한다.
15.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피곤을 없애는 체질로 만들면, 몸이 연단되어 잘 행해진다.
16. 뇌도 굳은 것을 녹이고 풀어 놓지 않으면, 전혀 생각을 못 한다.
17. 뇌를 얼음덩이라고 생각하자. 다 녹은 것만 액체가 되어 물이 되었지, 안 녹은 것은 물 한 방울도 없다. 이같이 뇌도 녹이고 풀지 않으면, 굳어서 전혀 생각을 못 한다.
18. 사람이 자기가 쓰는 기계를 고쳐야 마음대로 쓰듯이, 자기 뇌 체질, 몸 체질을 고쳐야 마음대로 쓰게 된다.
19. ‘육체’는 반응의 존재체다.
20. ‘영체’는 본체의 존재체다.
21. ‘육체’는 육체와 마음체로 존재하지만, ‘영체’는 그 자체가 마음체이며 영체로 존재한다.
22. ‘육체’는 육체에 의해 마음이 좌우된다.
23. 육체가 늙으면, 마음도 거기에 해당되게 존재한다.
24. 뇌세포가 늙고 한계를 넘으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뇌세포가 죽어서 기억이 없어지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이다.
25. 나이 들어서 이미 뇌세포가 죽은 자는 평생 자체로는 더 이상 기능을 못 하고 끝난다.
26. 육체가 단련되고 건강한 만큼 마음도 기능을 한다.
27. 육체가 기능을 못 하면, 영체가 강해도 마음은 육체를 통해 행하기에 기능을 못 한다.
28. 육체 고치기다! 육체가 살아 있어도 뇌세포가 굳은 채로 행하면 기능을 못 한다.
29. 육체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하여 영체와 혼체의 기능을 써서 영체와 혼체가 깨닫고 알고, 다른 사람을 통해 행하게 하면서 하면 된다.
30. 뇌를 발달시킬 때, 자체로는 발달이 잘 안 된다.
31. 뇌는 눈으로 보여 주고 귀로 듣게 해 줘야 깨닫고 굳은 것이 풀려 발달된다. 또 뇌는 몸으로 행해야 깨닫고 발달된다.
32. 뇌는 생각하며 발달시킨다.
33. 기도하여 뇌를 영적 차원에서 발달시켜라.
34.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다. 영의 세계는 어른 세계와 같고, 육의 세계는 어린아이 세계와 같으니 이같이 다르다.
35. 육의 세계는 불완전하다. 영의 세계는 보다 완전하다.

36.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모르고, 약하고, 변화무쌍하다.
37.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을 받고 살아야 한다.
38. 내가 많이 배워서 모르는 자들을 많이 가르쳐 주겠다.
39. 네 몸을 덤프트럭같이 쓰지 말고, 세단같이 아껴서 써라.
40. 육체는 합당한 운동을 해 주고, 합당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관리다.
41. 마음과 정신 역시 관리하여 건강하게 하여라.
42.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음식과 같다. 육신이 존재하는 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43. 알아도 기술과 방법이다.
44. 어떤 상황을 알아도 그것을 처리하는 기술과 지혜가 필요하다.

<2013년 8월 30일 자체 기도회 말씀> 중요 잠언

1. 사람들을 보면, 상 - 중 - 하로 삶을 살아간다.
2. 어떤 일을 놓고 자기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상 차원으로 사는 자'라 한다. / 그리고 보통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중 차원으로 사는 자'다. / 그리고 그런 대로, 되는 대로 살면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하 차원으로 사는 자'라 한다.
3. 인생 성공하려면, 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4. 상 차원의 삶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5. 최선을 다해 상 차원의 삶을 살아야 뇌가 더욱 개발되어 잠재 능력을 쓰게 된다.
6. '인간의 뇌'에는 무한한 신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더 잘하려고 하면서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하면서 행해야 뇌에 잠재되어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작동되어 생각나고 행해진다.
7. 생각을 극까지 하고, 행동도 극까지 하여라. 그래야 뇌에서 더 극적인 차원의 것을 꺼내 준다.
8. 뇌가 만족할 때까지 해 보아라.
9. 육신과 마음이 만족하다 하고 더 이상 안 하면, 뇌는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안 준다.
10. '뇌'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은 부모 앞의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여라.
11. 부모 품의 어린아이가 쇼핑을 가자고 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구멍가게에 데려갔다. 만일 어린아이가 거기서 먹을 것을 사면, 부모는 "됐지? 만족하지?" 하고 집에 데려온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더 크고 좋은 데 없어?" 하면, 부모는 힘들어도 아이가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곳에 데려가서 구경시켜 주면서 보고 느끼고 살 것을 사게 한다. '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시장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듯이, 무한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기

생각과 행동으로 자기 뇌를 신적인 뇌로 개발하려면, 기도하여라. 그리고 뇌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12. 뇌를 차원 높여 올리는 길을 들이고, 그와 같은 체질로 만들어라.

13. 과학을 비롯한 각종 학문, 예술, 정치, 종교 모두 원시인 세계에서 차원 높여 행하고 발달시켜 현대식으로 만들었다.

14. 최대로 발달된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려면, 자기 뇌를 발달시키고 쉬지 말고 행하여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뇌가 발달되지 않고 유능하지 않으면, 세상의 발달된 것들을 쓸 줄 모른다.

15. 자기 육신이 편하려고 더 생각하지 않고 더 행하지 않으니, 젊은 뇌가 점점 안 쓰는 지체같이 굳어 간다.

16. 뇌는 육신이 나이 먹어도 육신같이 빨리 안 늙는다.

17. ‘육신’은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해 주면, 80세를 먹어도 60세 기능을 한다. ‘뇌’를 잘 사용하여 뇌가 굳지 않으면, 육신이 80세 먹어도 50세 같다.

18. 자기 할 일이 없으면 뇌도, 생각도, 몸도 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가정·민족·세계 단위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며 성자와 함께 행해야 된다.

19.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뇌를 크게 사용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시대에 무한한 일을 ‘영광과 행복’으로 주신다. 그 일을 해야 뇌를 크게 사용한다. 자기 뇌를 발달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성자와 구원자와 함께 행하기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상하시는 것들을 받아서 행하면, 무한대로 할 일이 많다. 그 일들은 행복을 누리는 일이다.

21. 전도하여 생명을 가르치고 관리하여 시대 역사의 사람들을 무한대로 키워라. <자기가 행한 공적>으로 자기 ‘육’이 살았을 때 누리고,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22. 매일 자기의 일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일들을 낙(樂)으로 삼고, 더 좋게 더 많이 생각하며 행하여라. 그러면 뇌가 늙지 않고 굳지 않아서 인생 청청하게 기쁨으로 살게 되고, 미래에 희망이 쌓이게 된다.

23. 육이 편하게만 하면서 게으르게 살고 적당히 행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실 가닥만 하고, 소릿길만 하다.

24. 뇌가 굳은 자도 하나의 불구자다. 수십억을 준다고 해서 굳은 뇌가 풀어지고 고쳐지겠느냐. 아예 뇌가 굳어지지 않게 평소에 잘해야 된다. 평소에 부지런하게 행하는 것이 고생돼도 보람차고, 행함으로 공적을 세워 영원까지 쓰게 되고, 또 뇌가 안 굳어서 수백억의 가치로 쓰면서 사니 얼마나 좋으냐.

25. 한 번 뇌가 굳은 후에 다시 젊어진 뇌를 가지려면 정말 힘들다. 아예 뇌가 굳게 하지 말아라. 뇌가 굳으면, 치매가 온다.

26. 전능자의 영적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굳은 뇌가 가장 빨리 풀리고 치료된다.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니, 말씀을 듣고 행하면 성삼위가 연관되어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다.

27. 매일 새벽부터 시간을 잡아 상 차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를 쳐다본다 생각하고, 최고로 잘 행하여라.

28. 선생이 글씨 작품을 쓸 때, 제자들이 둘러서 쳐다보니 의식되어 더 잘 쓰려고 계속해서 못 쓴 것을 찢으면서 수십

번 썼다. 결국 수십 번 만에 일생 동안 내가 쓴 글씨 중에 최고로 잘 쓴 상 차원의 글씨를 썼다. 이와 같이 모두 혼자 있어도 최고로 실력을 다해서 해라. 글씨를 쓰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건물을 만드는 것도,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각종으로 모두 최고로 실력을 다해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받고 감탄하여 자기들도 그같이 하려고 뇌에 시동을 건다. 고로 녹슨 뇌를 닦고 기름칠하고 행하여 뇌를 풀게 된다. 그 공적으로 전능자 삼위일체가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29. ‘행하는 만큼’ 뇌도 몸도 생각도 발달되고, ‘행하는 만큼’ 얻는다.

30. 뇌를 발달시키는 것은 돈을 주고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혼자서 해도 얼마든지 상 차원으로 발달된다. 곧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다!

31. “하나님은 왜 나는 안 도와주지?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지? 서운해.” 하며 한탄하지 말아라. 지구 세상에는 인구가 70억 명으로 번창했다. 그런데 인구가 불어날 때마다 어떻게 일일이 다 대답하시고 도우시나. 애인이라고 해도 다 해 주다 보면, 매초마다 다 답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 /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뇌’에다 행할 수 있는 실력·능력·지혜·힘·방법을 주셨다. 인간이 살면서,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뇌’를 개발시켜 잠재 능력을 찾아서 쓰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뇌’라는 엄청난 신의 기구를 쓰지도 않고서 하나님께 투정만 한다. 절실히 깨달아라!

32. 모를 때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듯 한다. 알고 보면, 사람이 수백만 가지 일들을 다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뇌’라는 기구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니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물어보고 기도하면 된다.

33. 자기 아버지가 한 나라 재벌이라, 자녀들이 깊이 생각하고 찾고 노력하면 찾는 것이 다 있다. 그런데 미련하여 자기가 노동해서 돈을 벌어서 시장에 가서 사다 쓴다. /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자도 주도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했다. 구하면 찾는 것이 찾아진다. 찾는 수고가 값이 되어 그 수고로 값을 지불하고 얻으면 된다.

34. ‘뇌’라는 감지기로 찾고 만들어라. 뇌를 수만 가지로 활용해라.

35. 뇌의 차원을 높여야 좋은 것을 얻는다.

36. 뇌가 고장 나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을 고치기다.

37. 주가 그 일을 축복으로 줬는데도 자기 뇌가 녹슬고 굳어서 감격하지 못하고 이유를 달고 안 한다.

38. 자기 축복을 다른 자가 가지고 가면, 그제야 후회한다.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가지고 가서 돋보이니, 그제야 안타까워한다. 뇌가 굳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모른 것이다.

39. 자기 뇌를 연구하여라. 마음의 근본인 ‘뇌’를 변화시켜 굳은 체질을 고쳐라.

40. ‘뇌 수술’을 하여라. 곧 계획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하기다. 전능자와 구세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행하기다. 그리하면 점점 굳은 뇌가 고쳐지고 변화되어 수술한 뇌가 된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성자와 통하여 그 생각을 받아 행하게 되고, 분체와도 통하여 그 생각으로 행하게 된다.

41. 뇌가 바뀌어야 생각과 행위도 바뀌어 이상적으로 행한다. 고로 고정되어 있는 듯한 영과 혼도 변화되어 휴거의 영이 된다.

42. 뇌를 고쳐야 육이 휴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43. 마음으로는 이 시대의 최고 좋은 휴거도 정말 하고 싶고, 전도하여 생명도 살리고 싶고, 성자를 최첨단으로 사랑하

며 최첨단으로 말씀도 잘 외치고 싶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먹어도 금방 변한다. 뇌가 굳어서 그러하다. 그러니 뇌를 고쳐라.

4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나 되면, 뇌는 점점 변화된다.

45. '천국'은 최고 상 차원의 세계다. 고로 인간의 육신이 최고 상 차원의 삶을 살아야 그 영이 천국에 갈 수 있다.

46. 천국은 실력이 없으면 못 간다.

47. 자기 실력과 행위대로 그 영이 천국 - 낙원 - 선영계 - 음부 - 무저갱 - 지옥의 천층만층 세계로 쪼개져 간다.

48. '천국'은 성약역사에 와서 성자를 맞고 상 차원의 삶을 살아 성자의 신부가 되어 분체와 일체 된 자들의 영이 완성 되고 휴거되어 가는 세계다.

49. '육'이 상 차원의 삶을 살면, 그 '영'도 상 차원으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상 차원의 천국에 가서 산다.

50. 최선을 다해 사는 자가 누구냐? 상 차원의 삶을 사는 자다.

51. 최선을 다해 생각하고 행해야 그제야 굳은 뇌가 풀린다.

52. 자기 뇌가 길이 든 대로 차원 낮은 TV, 컴퓨터게임, 만화, 음란 소설, 음란물, 각종 오락, 썩은 문화, 각종 성 세계에 처해 살면서,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들으면 별로 재미없고 의미 없다고 하며 가치 없이 생각한다.

53. 자기 뇌의 잠재 능력을 최고로 사용해야 상 차원에서 살게 된다.

54. 인생이 못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원인은 뇌가 굳어서다.

55. 굳은 뇌를 푸니, 신적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 고로 하루 만에 좋은 아이디어가 솟아 그 구상대로 행하여 은행 창고가 되게 했다.

56. 깊은 기도를 하다가 굳은 뇌가 풀려 지혜로운 생각이 나서 행했다. 고로 하루 만에 1년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57.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깨달아져 그것을 행했는데, 40년 동안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3일 만에 얻었다. 뇌를 고치면,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여 그것을 얻게 된다.

58.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살았다. 그런데 못 얻었다. 관념으로는 아는데, 뇌가 중 차원에 있으니 눈으로 봐도 안 보인 것이다. / 그런데 거기 놀러 갔던 사람이 며칠 만에 그가 원하던 것을 찾아갔다. 상 차원에서 생각하고 사니, 눈에 바로 보인 것이다. 고로 관념으로만 알고 건성으로 살지 말아라. 상 차원이 되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59. 자연 속에 수백 종의 보물들이 있다 하자. 뇌가 하 차원이나 중 차원에 있는 자는 눈으로 봐도 상 차원의 보물은 안 보인다. 뇌가 눈을 떠야 육도 눈을 떠서 보고 얻게 된다.

60. 선생이 외국에 있을 때다. 글을 쓰다가 너무 피곤해서 창문이라도 열고 창밖의 멀리 있는 배경을 보면서 눈의 피곤을 풀고 싶었다. 그동안 숙소와 가까운 곳은 돌아다녀 봐서 나가고 싶지 않아서 방에서 글만 쓴 것이다. 30개론을 쓸 때였다. 그렇게 며칠 동안 글을 더 쓰니 답답해서 '내일은 주위라도 돌아다녀야겠다.' 생각하고, 그 나라에 사는 제자에게 "이 주위에 어디 시원한 계곡 없냐?" 하고 물었다. 제자는 "차로 1시간 동안 가면, 시원한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습니다." 했다. 그래서 다음 날 일찍 그곳으로 갔다. 그곳 계곡의 물은 얼음물같이 차가워서 발을 담그니, 피곤이 싹

풀렸다. 그때는 계속해서 영적 차원으로 집중하여 글을 쓸 때라서 뇌가 상 차원의 수준에 있을 때였다. 이때 성자는 조용히 내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자연석을 줘자.” 하셨다. 그래서 ‘멋진 돌이 있나? 형상석이 있나?’ 하고 찾았다. 그런데 그 나라의 돌들은 모두 석회석이라 약해서 강한 물에 껴여서 90% 이상이 둥글고 형체가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돌에 무늬가 새겨진 ‘무늬 돌’을 찾게 되었다. 수천만 개나 보았지만, 형상으로 된 무늬가 없었다. 결국 돌 몇 개를 줍고 몸을 풀고 돌아왔다. 이렇게 성자의 말씀으로 내 뇌는 돌을 찾는 데 시동이 걸렸다. 글을 쓰다가 또 일주일이 갔다. 몸이 굳어서 또 계곡으로 가고 싶어서 가게 되었다. 그때 성자께서 “돌을 주우러 가자.” 하고,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날은 계곡 속에 들어가서 걸으면서 몸을 풀고, 눈으로는 형상이 무늬로 새겨진 돌을 찾다가 결국 무늬가 흐릿한 것을 하나 찾았다. 무늬가 흐릿하여 버릴까 하다가 집에 가지고 왔다. 가지고 와서 물이 마르니 무늬가 또렷해졌다. 작품이었다. 결국 성자가 그 돌을 주우러 가지고 한 것이었다. 작품은 그 지역에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작품이다. 선생도 처음에는 이것을 모르고 돌이 별로라고 한 것이다. 사람도 시대마다 그 시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사명자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만 보고,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 것은 찾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다. 개성대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으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보다 못해도 작품이다. 월명동 가는골에 소나무 작품이 4~5주 있다. 그 골짜기에서 제일 좋은 소나무가 그곳의 작품이다. 뒷산, 옆 산, 동그래산, 앞산의 소나무 작품은 모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아서 작품이 된 것이다. 사람도 탁월한 자와 비교하면서 그런 자를 뽑으려 하면 없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그곳에서 상 차원으로 사는 자가 그곳의 인생 걸작품이다. 모두 상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사연을 말했다.

61. 먼저 뇌의 수준을 상 차원으로 높이고, 보기다. 듣기다. 행하기다.

62. 자기 사명을 할 때, 상 차원으로 노력하며 행하여라.

63. 하 차원의 삶은 자기에게 원시적 삶이다.

64. 하 차원의 삶을 살면 ‘동’을 얻고, 중 차원의 삶을 살면 ‘은’을 얻고, 상 차원의 삶을 살면 ‘금’을 얻는다.

65. 매일 상 차원을 목표로 놓고 행하기다.

66. 상 차원의 삶을 살면 ‘시간’도 더 들어가고, ‘수고’도 더 해야 하고, ‘노력’도 더 해야 되고, ‘고생’도 더 해야 된다. 하지만 얻으면 평생 상 차원의 것을 쓰게 된다.

67. 자기 성격 고치기를 상 차원으로 감행해라.

68. 회개도 상 차원으로 해라. 그래야 월명동 약수같이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 보름달같이 흰히 빛난다.

69. 악평자와 이단 종교를 완벽히 불신해라. 그래야 상 차원에 속해 살게 된다.

70. 감사생활도 상 차원으로 해라. 그래야 자기 경제도 상 차원에 있게 된다.

71.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쓰는 자는 경제의 사막 길을 가게 된다.

72. 전능자의 것은 전능자에게 드리는 것이다.

73. 성자에게 “하늘의 것을 마구 쓰고 달아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 성자는 “그들은 경제의 사막 길로 가서 살아야 된다. 하늘의 것을 쓰는 만큼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된다.” 하셨다.

74. 하나님께 축복받고서 축복받은 만큼 감사하지 않고 자기만 쓰니, 결국 경제의 한계를 맞게 된다. 축복은 그릇대로만 주신다.

75. 희망을 상 차원으로 가졌으면, 상 차원으로 최선을 다해 행하며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에 갔을 때 꿈과 희

망은 달아나고 없다.

76. 상 차원의 삶을 산 과학자들이 자전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게 했다.

77. 너희 각자도 하 차원에서는 자전거를 만들었고, 중 차원에서는 차를 만들었다. 이제 상 차원에서 비행기를 만들어라.

78. 성자는 휴거의 가능성이 있는 자를 돕는다.

79. 가능성은 성자가 이미 주었다. 고로 저마다 하기만 하면 된다. 안 해서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다.

80. 성자는 이미 누구에게나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먹으라고 했다. 먹고 안 먹는 것은 자유의지, 너의 몫이다. 성자가 무력으로 먹여 줄 수 없다. / 이와 같이 성자는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휴거 말씀을 주었다. 믿고 행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저마다 자유의지다. 좋다고 성자가 억지로 믿게 하지 못하고, 손발을 잡아 행하게 하지 못한다.

81. 성자는 상 차원의 세계에 있다. 내가 상 차원의 삶을 살면, 성자는 만나게 된다.

82. 차원대로 행하고 받는다.

83. 희망도 꿈도 '상, 중, 하' 어느 차원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르다.

84. 상 차원의 삶을 살면, 크고 좋은 미래를 약속 받는다.

85. 6000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구약 4000년은 하 차원의 역사이고, 신약 2000년은 중 차원의 역사이고, 성약 1000년은 상 차원의 역사다.

86. 삼위일체의 법을 고쳐 달라 하지 말고, 네 삶의 그릇된 뇌의 기능의 법을 고쳐라.

87. 뇌를 개선하고 변화시켜 굳은 뇌를 풀어 뇌가 제 기능을 하면, 모든 일이 쉽다.

88. 잠언을 쓸 때는 하 차원의 잠언은 안 쓴다. 중 차원의 잠언은 쓰다가 상 차원의 잠언이 나오면 전초로 쓴다.

89. 상 차원의 잠언을 읽고 행해야 굳은 뇌가 풀리고 무지한 뇌가 지혜롭게 된다.

90. 성자 본체가 어떤 사명을 주고 일을 시키면, 저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그때 일주일씩 기도해 보면, 앞날까지 보게 된다. 그때 뇌의 눈을 뜨고 귀한 것을 알게 된다.

91. 고장 난 차를 안 고치고 운전하면 안 되듯이, 굳은 뇌를 안 풀고 행하면 해도 안 된다. 굳은 뇌를 풀고 마음을 운전하면, 잘 행해진다.

92. 인생 몰라서 못 하고, 알아도 힘들어서 못 하고, 하고 싶어도 실력이 적어서 작게 행한다. 숙달하고 단련하여 크게 행해라.

93. 너, 그 정도 해서 영원한 이상세계 천국의 황금성에 들어가겠느냐.

94. 정말 하고자 하는 자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

95. 성자 사랑의 기회와 말씀 듣는 기회를 놓치면, 천국 황금성으로 가는 진입로를 모르고 지나친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와도 낙원급 기회가 온다.

96. 천국의 황금성을 세상의 좋은 것을 얻는 정도로 생각하느냐.
97. 천국의 황금성을 받으면, 지금 한 나라를 선물 받는 것보다 더 크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보통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보통으로 행하고 갈 수 있겠느냐.
98. 휴거는 쉽기도 하다. 어렵기도 하다.
99. 성자를 100% 사랑하고 살면, 휴거는 쉽다. 성자를 90% 사랑하고 살면, 휴거는 어렵다.
100. 성자가 말씀과 방법을 다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휴거는 쉽다. 그러나 자기가 몸으로 행해야 되니, 어렵다. 고로 뇌와 몸을 단련해라.
101. 성자는 너의 휴거를 위해 그동안 충분히 가르쳐 주었다. 못 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다. 가르쳐 주었으니 못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02. 죄가 있으면, 휴거는 안 된다.
103. 성자를 100% 사랑하지 않으면, 휴거는 안 된다.
104. 성자의 육과 100% 일체 되지 않으면, 휴거는 안 된다.
105. 휴거 때가 지나면, 평소보다 10000배 이상 더 행해도 휴거는 안 된다.
106. 휴거가 안 된 영은 자기 육이 행한 대로만 영이 변화되어 그 차원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107.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휴거의 때와 기회를 놓치고 영이 영계에 가서 조건을 세워 휴거되는 영은 없다. 이미 육계에서 때를 찼기 때문이다.
108. 휴거는 성자가 땅에 와서 땅에서 먼저 성자의 몸이 되는 육신을 통해서 하신다. 다음에 신령한 영인 성자 본체가 와서 영계의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천국으로 휴거시킨다.
109. 휴거가 안 된 영들은 천국은 못 간다. 그 육이 육계에서 할 것을 다 못 하고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죽으면, 영이 영계에서 행하여 더 좋은 영계로 가게 할 뿐이다.
110. <휴거 준비 기간>은 길지만, <휴거되는 때>는 짧다.
111. 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만, 차를 타는 때는 순간이다. 휴거도 그러하다.
112. ‘육’이 시대 휴거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영’이 변화되어 점점 하늘로 오른다. 성자와 사랑 일체 되고 휴거의 영이 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113. 휴거는 다양하게 설명된다. 휴거의 주인인 전능자 성자의 계시와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잠언을 다시 읽고 행하여라. 아멘.
114. 휴거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휴거될 자가 휴거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115. 휴거는 뒷전에 두고 먹고 살면서 자기 인생살이 앞세우고 사는 자를 보아라. 얼마나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냐. 영계에서 보면, 육신은 이 땅에서 존재하게만 하고 휴거되려고 결심하고 전심으로 행하지 않는 자의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 자는 한 명도 없다.

116. 뇌 체질, 마음 체질, 몸 체질을 만들어라. 그래야 유능하게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117. 목적지를 놓고서 가다가, 앉아서 쉬다가 놀다가 하면 제시간에 목적지에 못 간다.

118. 열 내서 할 때 해야 흥분되어 전심으로 해진다!

119. (성자) 잠언을 참기름 짜듯이 ‘쭉~’ 빼내라!

<2013년 8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뇌는 생각으로 움직인다.

2. 생각보다 뇌가 먼저다. 뇌가 작동하니, 생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3. 뇌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다 한다. 몸은 뇌에 의해서 행하며 기능을 할 뿐이다.

4. 뇌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어도 자체에서 뇌신경이 작동하니, 생각으로 보고 들은 것이 연상되며 생각이 돌아간다.

5. 뇌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니, 뇌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작동하게 된다.

6.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고로 절대자이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미완성 인생을 벗어나 온전하게 재창조되어, 인간으로서 신적 단계로 온전해진다.

7. ‘뇌’는 가만히 있어도 평소에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며 잡념에 빠지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그것들을 연상하며 잡시간을 보낸다. 뇌를 확대한 ‘육체’도 가만히 있으면, 잡시간이나 갖게 된다. 고로 무엇이든지 할 일을 해야 된다.

8. 육체를 축소하면 ‘뇌’이고, 뇌를 확대하면 ‘육체’다.

9. 뇌에서 발생하는 잡생각과 호기심과 연상되는 생각을 꺾고 없애려면, 기도하여 그 차원을 벗어나라. 또 혼과 영의 생각을 하여 그 생각을 강하게 함으로 잡생각이 모두 밀려나고 사라지게 하여라.

10. 혼계에 들어가서 혼의 생각으로 보면, 육이 호기심을 가지고 연상하고 상상했던 잡생각들이 너무도 더러운 쓰레기 같이 보인다. 고로 혼의 생각이 바로 쓰레기를 버리듯 잡생각을 버려 버린다.

11.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행하면서 만족한다.

12. 술 담배를 하는 자들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한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면 ‘왜 그런 것을 즐기며 좋아했나? 정말 미련하게 살았다.’ 한다.

13. 보다 이상적인 차원으로 나와야 수령을 싫어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수령으로 가지 않으려 한다.

14. 뇌를 발달시켜 생각이 발달된 자들이 하(下) 차원 세계에서 즐기면서 행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원시인들로 보인다.

15. 시골에 가면 어린이들이 잡초 속에 엎드리고 숨고, 잡초 속에 있는 벌레들을 모르고 그곳에서 뒹굴며 모기 등쌀

속에서 뛰어 놀면서 좋아하며 즐긴다. 그러다 벌레와 모기가 팔다리와 몸을 무니, 간지러워서 벅벅 긁고 있다. 뇌가 그 쪽으로 움직이니, 몸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생각이 성장되고 바뀌면, 후회한다. 사람은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뇌가 발달되면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를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

16. 그 당세에는 당세만 생각하고 시멘트를 사용해서 만들었다. 후에 가서 보니, 차원이 높은 더 좋은 구상이 있었다. 그런데 시멘트로 한 것을 뜯고 다시 하려니 힘들다. 고로 앞날을 생각해서 해야 된다.

17. 성장기 때는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18. 성장하는 도중에 그릇된 것에 중독되어 그것들을 세뇌시켜 놓으니, 세월이 가서 성장해도 이미 그릇된 생각을 뇌에 깊이 못 박아 놔서 옳은 것을 못 보고, 더 이상적인 차원에 못 올라간다.

19.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자기가 오락, 게임, 이성 등 그 차원의 것들에 만족해 하며 그것들을 반복해서 행하니, 뇌가 더 좋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면역이 되어서 그릇되게 중독되고 고정되어 버린다. 고로 발전이 없다. 고로 나이가 들어도 더 좋은 차원으로 못 가고, 어른이 되어도 계속해서 그릇된 행위를 한다.

20. 신앙의 삶도 성장한다. 구약과 신약은 성장기 역사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더 이상은 없다.” 하고 세뇌시키고 하니, 뇌와 마음과 생각이 구시대에 면역이 되고 중독되어 구시대에 만족하고 믿고 산다. 고로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더 좋은 역사를 펴셔도, 보는데도 듣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21. 자기를 중심하고 사는 자에게는 구원도 휴거도 없다.

22. 접붙이기다.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듯이, 자기 생각과 중심을 잘라 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접붙이기다.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지 않으면 평생 참감을 못 열듯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으면 평생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가 육체로 끝나서 구원도 휴거도 못 이룬다.

23. 돌포도나무나 돌감나무에 평생 퇴비하고 온갖 정성으로 가꾸며 사랑해도 좋은 참포도와 참감은 열리지 않는다.

24. 성자가 보낸 사명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듣고, 보낸 자의 정신과 마음을 자기 뇌에 접붙여 일체 돼야 한다.

<2013년 9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조건, 큰 대가다.

2.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또 이 시대까지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조건 - 대가>의 역사였다.

3.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으로 137억 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땅에는 ‘육신’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시작하셨고, 영으로는 ‘영’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인류를 키워 오시다가 때가 되어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때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고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시며, ‘조건’을 주셨다.

4.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땅과 하늘에 이상세계를 이루는 조건’이었다.

5.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을 안 지키면, 영이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이 심판을 받음으로 육도 사망권 세계에서 살게 하셨다. 고로,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육으로 끝나게 하셨다.

6.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을 지키면, 일생 동안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영도

살아서 구원받고, 그에 따라 육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게 하셨다.

7.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조건,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조건’을 안 지키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로 인해 그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육’은 살았으나 사망권에 거하여 일생 동안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았다. 그로 인해 그 후손들도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8. 이 시대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조건, 곧 이성 범죄를 짓지 않는 조건을 지킨 자들만 조건을 지킴으로 ‘대가’를 받는다.

9. 이성 범죄를 짓지 않는 조건을 지킨 대가가 무엇인지는 시대를 알고 그 조건을 지킨 자들만 안다.

10. 이성 범죄를 저지름으로 조건을 못 지킨 자들은 그로 인한 대가를 못 받으니,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11. 구약시대 때는 아담과 하와가 ‘조건’을 안 지켰기에 그 시대는 <형벌 기간>을 보냈다. <형벌 기간>이라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그 뜻과 역사를 펼 수가 없었다.

12.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을 안 지켰기에 구약 4000년 동안 그 자손들과 지구 세상에 사는 자들이 형벌 기간을 보냈다.

13.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성자는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약의 터전 위에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다. 곧 <신약 역사>였다.

14. <신약 때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이 조건을 세우는 자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대가를 얻었고, ‘메시아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대가를 얻었다.

15. 메시아를 기다리던 율법 종교인들은 성경에 ‘구름 타고 하나님이 온다.’라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늘의 흰 구름을 타고 신의 몸으로 직접 땅에 오실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예수’라는 ‘깨끗한 인간 구름’을 타고 오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성자가 예수에게 임하여 강림하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핍박했다.

16. 결국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고 말았다. 그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은 2000년 동안 형벌 기간을 보내며 형벌을 받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자들도 구원받고 살았으나 고통 중에 믿었다.

17.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고, 역시 “구름 타고 온다.” 말씀하셨다.

18. 신약 2000년 자녀급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계획한 대로 이 시대에 합당하게 예비시킨 자의 육신을 쓰고 또 행하신다. 그리고 신약에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신다.

19. 신약의 예언대로 전능하신 성자께서 그 육으로 쓸 합당한 자를 예비시키고, 그 인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재림 때는 성자께서 땅에 ‘신부’로 준비시킨 자를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 인구름 육신을 타고 다시 오신다.

20. 신약 때도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성자’가 오셨다. 고로 신약 이후에도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성자’가 다시 와서 행하신다.

21. 성자의 육이 되는 자가 성경에 말한 대로 ‘인간 구름’이다. 성자는 그 ‘인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가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자세히 가르쳐 준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100% 믿고 따른 자들이 그 ‘조건’으로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땅에서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를 맞는다. 이들도 ‘인간 구름’이다. 성자는 ‘인간 청중 구름’을 타고 재림 역사를 나타내신다.

22. 성자의 욕이 되는 자가 전하는 말씀을 100% 믿고 따른 자들이 그 조건으로 성자의 신부가 되고, 거기서 시대 말씀에 따라서 100% 온전히 행한 자들의 <영>이 온전한 신부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휴거된다. <육신>은 땅에서 성자가 그 욕으로 쓰는 본체를 믿고 성자를 믿고 사랑하면, 땅에서 시대 역사를 펴면서 땅에서 욕이 휴거의 삶을 산다.
23. 이 시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성경의 비유로 된 말을 문자 그대로 알고 '예수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게 온다.' 하면서, '성자가 그 인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들을 이단시한다. 또 '예수가 오면, 인간의 육신이 휴거되어 천국으로 간다.' 하면서 그릇되게 알고 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똑같다.
24.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때같이 자기 주관과 무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한다. 깨달으면, 예수님 때 예수님을 믿고 가듯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펴며 뜻을 이루며 간다.
25. <깨달고 따르는 것>과 <몰라서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26.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천주교와 개신 기독교>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구약 종교 인물>은 '하늘과 땅' 차이다.
27. 이 시대도 <구름>을 '사람'으로 믿고, '성자'를 맞고, '성자가 이 시대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욕도 영도 '휴거'를 이루고 있다. 이를 <불신하는 자들>과 <알고 깨달고 따르는 자들>은 '땅과 하늘 차이'다.
28. 모르는 자들은 "예수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라고 믿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올 것을 기다리며, "육신이 천국으로 휴거된다."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다.
29.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2000년도는 이미 지났다. 예수님은 안 오셨다. 하나님과 성자는 인간들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하루도 안 틀리고 행하신다.
30. 신구약 6000년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성자가 인간을 쓰고 행하셔도 모두 다 알고 맞은 것이 아니다. 아는 사람들만 알고 따랐다. 모르니까 그 당세에는 소수의 무리들만 역사를 맞았다.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른 뒤에야 점점 역사가 커져서 민족과 세계가 역사를 따랐다.
31. <섭리역사>도 처음에는 선생 한 명뿐이었다. 그러다 선생이 성자에게 받은 말씀을 외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32. 시대 말씀을 듣는다고 다 새 역사를 맞는 것은 아니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판단으로 잘못 해석하고 나가기도 하고, 중간에 어려움이 있으니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오다가 말기도 했다. 지금까지 남은 자들은 책임을 다한 자들이다.
33. 하나님과 성자가 택했어도 자기가 시대에 해당되는 '조건'을 못 지키면, 하나님과 성자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실 때 제대로 모르게 되고, 결국 불신으로 흐르게 된다.
34. 고로 가르치는 자들도 배우는 자들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육신>도 '땅'에서 성공하는 휴거 역사를 이루고, <혼과 영>도 천국으로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35. '처음에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것'이 <육신 일생>과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 고로 가르치는 자들은 배우는 자들이 먼저 자기 잘못된 인식관을 버리게 하고, 그 터전 위에 시대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된다.
36. 가르치는 자는 한 생명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하고, 배우는 자도 잘 배워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절대 조건'이다.

<2013년 9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37. 설교 시간에도 <잘 전하기, 잘 듣기, 잘 행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절대 조건’이다. 이 ‘조건’을 세우면, 그에 대한 ‘대가’가 크게 온다.

38. 설교할 때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넣고, 발음을 확실히 하지 않고 틀리게 하고, 원본과 다르게 설교하면 정말 안 된다. 성자의 설교 흐름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39. 목회를 하려면, 목회자는 성자가 쓰는 자들이니, 정말 기도하고 신경 써서 잘해야 된다. 이것이 ‘조건’이다. ‘조건’이 돼야 그로 인해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운영이 잘되는 대가’가 오게 된다. 반드시 ‘조건 - 대가’다.

40. 선생도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처한 환경이나 각종 여건 때문에 성자 앞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되는 것이 없다.

41. 지도자도 따르는 자들도 모두 차원을 높여야 된다.

42. ‘조건’은 작든지 크든지 성자가 주시고, 그것을 선생이 듣고 섭리사 전체에 말해 준다. 고로 ‘성자가 주시는 조건’은 절대 지켜 행해야 된다.

43. 선생에게도 ‘성자가 주신 조건’이 있다. 그러나 보통으로 해서는 그 조건이 행해지지 않았다. 곧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하고 꼭꼭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설교를 쓰는 것, 써 놓은 책을 교정하는 것, 서류와 보고 결재, 편지에 대한 답을 하는 것 등으로 정한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일체 다 미루고, 결국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지켰다. 2개월 동안 기어코 해서 다시 리듬을 찾았다. 그랬더니 성자께서 ‘조건’이라는 비밀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의 말씀을 잠언으로 100개 이상 주셨다.

44. 성자는 성경 전체를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과 나 성자가 준 조건을 안 지키면 뜻이 깨지고, 조건을 지킨 자들만 뜻을 이루며 역사를 펴 나갔다.” 하셨다.

45. 선생부터도 성자가 절대 조건을 주셨으면, 내가 그 조건을 지켜야 성자께서 해 줄 것을 해 주신다.

46. 성자는 성자가 주신 조건을 지키면, 무엇을 해 주실지는 약속하지 않으신다. 조건을 지킨 자에게만 계속 주신다. 고로 조건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는 조건을 지킨 자만 안다.

47. 조건을 지키고 대가를 받아도, 무엇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48. 섭리사에 <성자 본체>에 대한 인봉의 말씀이 풀릴 때도 선생이 ‘40일 에스더 기도 조건’을 세울 때였다.

49. 성자는 성자를 상징하는 <성자바위>를 섭리사에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도 선생이 ‘21일 조건 기도’를 하고 나서 받았다.

50. 선생이 2개월 동안 절식 기도를 할 때 성자께 ‘조건’이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제 3개월째 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섭리인들의 ‘휴거’를 위한 조건 기도였다.

51. 진짜 기도해야 ‘기도 조건’이 된다. 날짜만 채우는 것은 ‘조건’이 될 수 없다. 고장 난 뇌가 고쳐질 때까지 고치듯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52. 조건이 작아도 그 조건을 안 지키면, 그에 대한 ‘형벌’을 크게 받는다. 조건이 작아도 그 조건을 지키면, 그에 대한 ‘대가’ 역시 크게 받는다.

53.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풀어 주었고, 그 '조건'으로 결국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 모든 누명을 벗었고,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갔다.

54. 야곱은 팔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 축복'을 받고, 평생 잘되고 형통했다.

5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작은 조건'을 지킴으로 '큰 대가'를 받는다. 고로 조건이 작다 하지 말고, 꼭 행하고 기어이 지켜라.

56. 선생도 '이 시대에 하는 일에 비해서' 21년 기도하고 배운 조건은 작았다. 그러나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제대로 푸는 '조건'을 세우니, 이 시대에 성자의 역사를 펴는 데에 그 몸이 되어 사명을 하게 됐다. 모든 말씀은 구세주 성자가 가르쳐 주셨다.

57. 1999년에 선생이 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 이성의 유혹을 이겨 이성 문제가 없어야 할 것과, 말씀으로 사상을 굳건히 세워 흔들리지 않을 것과, 환난을 이길 것과, 형제들과 화목할 것을 말하며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올 때까지 굳건 하라고 말했다. 한국도 해외도 이 '조건'을 못 지킨 자는 못 받았고, 이 '조건'을 지킨 자는 줄 것을 주었는데, 무엇을 주었는지는 모른다.

58. 조건은 비밀의 것들이고, 조건에 의해 받는 것도 비밀의 것들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성자가 주신다.

<2013년 9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59.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주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60. 하나님과 성자께서 조건을 주셨을 때, 그때 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못 하는 자들이 많다. '조건'은 '약속'이기도 하다. 고로 기도해서 찾아야 된다. 약속을 지키면, 해 줄 것을 해 주신다. 고로 성자와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못 한 것이 있는지, 기도해서 찾아라.

61. 어떤 일을 해도 안 될 때 기도하면, 성자는 "이렇게 해라." 하며 '조건'을 주신다. 그것을 지키면, 원하는 것이 된다.

62. 조건은 답이다. 조건은 자물통의 열쇠다. 고로 '조건을 지키면' 문제가 해결된다.

63. 조건은 고장 난 기계나 차의 고칠 곳을 가르쳐 주어 고치는 것과 같다. 고로 '조건을 지키면'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64. 조건을 지키고 얻었으면, 다 말하지 말고 말할 것만 말해야 된다. 받은 것을 다 말하면, 사탄이 오고 인사탄이 온다.

65. 조건을 주면, 왜 이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 묻지 말아야 된다. <조건>은 '성자가 주시는 시험문제'다. <지키는 것>이 '답'이다.

66. 조건은 '돈'과 같아서, 조건을 세우면 값을 지불하는 입장이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67. 선생도 섭리역사를 펴기 전에 성자께서 '70일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시어, 각종 죽음을 체험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조건을 세웠다. 그때 그 대가로 '시대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68. 어느 때는 기도 조건, 어느 때는 전도 조건, 어느 때는 관리 조건, 어느 때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조건, 어느 때는 믿음 조건, 어느 때는 행실의 조건, 어느 때는 십일조와 감사의 조건, 어느 때는 100% 사랑의 조건, 어느 때는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다.

69. 올해는 ‘말씀과 전도의 해’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선생에게 ‘깊이 기도하여 말씀을 받아서 주는 조건’을 주셨고, 성도들에게는 ‘전도하는 조건’을 주셨다. 말씀을 받아서 주는 조건은 지켰다. 이제 전도하는 조건을 지키는지 보신다.

7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조건을 주시고, 우리가 그 조건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절대 조건대로 주실 것이다.

71.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 회개하는 조건’을 세워야 용서해 준다.

72. 특히 이 시대는 ‘사랑 지키기 조건’을 꼭 지켜야 된다.

73. 휴거 때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자들의 휴거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고로 설교에 자기 말을 더하지 말고 원본대로 성자의 심정대로 전하는 조건, 설교할 때 발음을 확실히 하고 띄어 읽으며 잘 전하는 조건, 제스처를 적절히 잘하는 조건, 강약 조절을 잘하는 조건 등 모든 것이 다 조건이다. 조건을 지키면, 얻을 것을 얻는다.

74. 성령 받기 조건, 성자와 교통하기 조건, 성자의 말씀을 전하기 조건, TV와 인터넷 게임에 시간을 안 뺏기기 조건,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 조건, 술·담배를 안 하기 조건, 음란물을 안 보기 조건, 새벽 에 기도하기 조건, 말씀을 지키기 조건,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기 조건, 성자를 우선권으로 두기 조건 등... 조건을 지켜야 100선, 200선, 300선 휴거를 이루게 된다.

75. ‘조건’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절대 법이다.

76. 하나님과 성자가 개인에게 ‘세계적인 조건’을 주었을 때, 그 조건을 지키기만 하면 세계의 운명도 돌아간다.

77. 성자에게 ‘민족의 조건’과 ‘섭리의 조건’을 받고, 그것을 행하면 조건을 세운 대로 된다.

78. ‘조건’은 꼭 지켜야 된다.

79. 기도해야 ‘성자가 주신 조건’을 깨닫고 받게 되고, 조건을 행하게 된다.

80. 기도도 이 시대에 누구와 의논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주시는지 ‘조건’이 있다. ‘절대 그 조건을 지켜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을 모르고 기도하면, 1년 동안 해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81.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시대 말씀을 외치는 것도 ‘비밀의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성령으로 시대 말씀을 외칠 수 없다.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된다.

82. 분체가 누구인지, 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분체가 누구인지, 성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면, 그 능력과 권세가 와서 행하게 된다. 고로 받은 자만 알고 행한다.

83. 조건을 받고 행하는 것은 금덩이다.

84. 작은 조건을 세웠는데, 성자는 조건을 세운 것의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신다.

85. 성자에게 조건을 받고 지키려 하면, 사탄이 막는다. 악평자도 막고, 환경도 막고, 형제도 은근히 막는다. 싸워 이기고 그 조건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가를 여러 배로 크게 받게 된다.

86. ‘조건’이라는 말씀을 받을 때, 선생은 59일째 절식 기도를 하며 꼭꼭 새벽 1시 기도 조건을 100% 세우고 받았다. 그 조건은 섭리인들의 휴거를 위한 것이었다. 사명자가 조건을 세웠으니,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세우면 휴거된다.

87. 사명자가 휴거 조건을 세워 주었으니, 누구나 본인만 조건을 세우면 휴거된다.

88. 휴거되지 못하는 자는 본인이 해야 할 그 작은 조건을 못 세웠기에 휴거되지 못하는 것이다.

89. 조건을 지키려 하면 지켜지고, 조건을 안 지키려 하면 어려워져 못 지킨다.

90. 마음은 약하다. 고로 ‘뇌 체질, 몸 체질’을 정상으로 고치고 만들어라.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91. 말씀은 곧 성자이시다. 고로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면 전능하신 성자가 자기 몸에 연결된 것이다.

<2013년 9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는 옆에 계시사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행위대로 갚아 주고 가신다.

2. ‘빛 좋은 개살구’가 없어야 눈을 돌리고 그 인식관이 없어져 ‘황금의 과일’을 찾아 얻게 된다.

3. 마음에서 빛이 좋게 보이는 ‘육성’이 없어야 ‘황금의 영원한 영의 것’을 얻는다.

4. 눈에 보이는 ‘흑송’이 없어야 또 다른 소나무들을 다 찾게 되어 숨겨져 있는 더 좋은 ‘홍송’을 찾게 된다.

5. 빛 좋게 보이는 ‘가인’이 없어야 하나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 ‘전능하신 성자’를 찾게 된다.

6. <가인>은 ‘희생과 수고의 조건’을 세워야 얻고, <아벨>은 ‘더 좋은 것을 찾는 조건’을 세워야 얻는다.

7. 육에 속한 자는 잘 보이고, 하나님과 성자에게 속하여 영에 속한 자는 악인에게 가려서 잘 안 보인다. 찾아야 얻는다.

8. 육은 잘 보이듯, 육에 속한 자는 잘 보인다. 영과 혼은 잘 안 보이듯, 영에 속한 자는 잘 안 보인다. 자기가 영에 속해야 영에 속한 자를 찾아서 보게 된다.

9.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이 더 좋다 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이 더 좋다 한다.

10. 알고 보면 그렇게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도 모른다.

11. 모를 때는 우선 눈에 보이는 자가 훨씬 좋고 아름답게 보인다.

12. 처음에는 모른다. 안 보이니 모른다. 고로 보이는 것만 희망에 차서 계획한다. 그것이 없어야 기대가 어긋나 다시 찾다가 더 좋은 것을 찾아 얻는다. 이것이라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실상은 전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점점 기르면서, 쓰면서 알게 된다. 흑송보다 홍송은 더 아름답고, 더 품위 있고, 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보다 하늘이 택하고 세운 자가 더 뜻이 있고 품위 있다.

13. 잔칫집에는 좋은 음식이 늦게 나온다. 역사의 좋은 사람도 늦게 나온다.

14. 두 존재는 한 자리에 있으나, 육이 영보다 먼저 눈에 보이듯 빛 좋은 육적인 것이 먼저 눈에 보인다. 보다 좋은 영적인 것이 나중에 보인다. 육적인 자가 없어져야 세상이 덮어 놓은 영경귀와 잡초를 다 잘라내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신령한 자를 찾아서 보게 된다. 그를 믿고 섬길 때는 천하의 황금같이 보여 쓰게 된다.

15. 보이는 인식관 때문에 소경이 되어 옆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못 보게 된다.

16. 사울에 가려서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도 다윗을 볼 수 없었다. 사울이 없어지니 황금 인생 다윗이 보였다.

17.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논밭을 문전옥답(門前沃畝)으로 보고 귀히 보고 살았다. 시대가 바뀌니, 모두 버려야 될 것들이었다.

18. 시대가 바뀌면, 옛것이 귀해도 옛 시대에서 귀한 것이었다. 모두 버려야 된다.

19. 자기 차원의 옛것을 벗어나면, 옛것들이 쓰레기로 보여 불가불 버려야 된다.

20. 기성인들은 ‘기성의 말씀과 교리, 기성의 삶의 체제’를 생명시하나, 새 시대를 만난 섭리인들에게는 그것이 쓰레기로 뒤바뀌어 버려 버렸다.

21. 개인도 차원 높여 올라가면, 과거의 습관과 삶과 생각들을 쓰레기로 보고 자기가 버리는 것을 좋아하고 원하여 버리게 된다.

22. 문전옥답(門前沃畝)도 농사를 지을 때는 황금 논밭이다. 그러나 빌딩을 지을 때는 보잘것없는 논밭이다.

23. ‘변화와 전환’은 황금 역사를 만나게 해 준다. 변화하여라. 차원을 높여라.

24. 변화하고 차원을 높이는 자만 황금 역사를 알게 된다.

25. 뇌에 그릇되게 채워진 것을 비워 내야 마음이 비워져 그릇된 인식관이 없어진다.

26.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육에 속한 논밭만 보였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인 성전 지역으로 보이지 않았다. 육적인 논밭이 없어지니, 영적인 성전이 보였다.

27. 육에 속한 하늘의 일꾼들만 보이니, 하나님이 보낸 시대의 사명자는 눈으로 보아도 볼 수가 없었다. 흑송이 없어지니 영경귀와 잡초에 뒤덮여 있던 홍송이 보이듯, 모두 없어지니 사명자가 보이고 그가 나타나 역사를 이루었다.

28. 기대했던 자가 기대에 어긋나면, 다시 다른 자를 찾다가 하늘이 뜻 한 자를 찾게 된다.

29. 구시대에서 재림역사의 기대가 어긋나니, 사람들은 다시 역사를 찾는다. 찾다가 세상 악과 잡초 속에 덮여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찾는다.

30. 한 사람이 두 형제에게 가려서 부모의 눈에 안 띄고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아들의 기대가 어긋나니, 부모와 형제들의 눈에 가려진 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고로 부모와 나머지 형제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고 깨닫고 기뻐하며 역사에 동참했다.

31. 눈으로 보이는 자에게 가려서 부모와 형제들이 몰라줄 때도 세월에 따라서 크고 있었다.

32. 종에게 가려서 아들이 안 보이고, 아들에게 가려서 사랑하는 신부가 안 보인다. 가리는 자가 없어지면 보이고, 그

를 중심으로 된다.

33. 구시대에 가려서 새 시대가 안 보인다. 초가집에 가려서 뒤의 새로 지은 집이 안 보인다. 저마다 옛집을 헐어라.

34. 빛 좋은 개살구는 빛만 화려하다. 좋은 과일들까지 망신시킨다. 다시 좋은 열매를 찾아라. 참과일나무가 사람들의 인식관에 덮여 있으니, 찾아서 키워라.

35. 눈에 보이니 더 좋게 보이고, 그것이 인식관이 되어 박혀 버렸다. 고로 더 좋은 것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찾지 않으려 하고, 보이는 것만 중심으로 된다. 보이는 것이 없어지니, 그제야 다른 것을 찾다가 더 좋은 것을 찾게 된다. 더 좋은 것을 찾아도 전의 인식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잘 모른다.

36. 과수원의 농부가 과일나무를 키울 때는 ‘과일나무’로 보람을 느끼고 사랑하며 산다. 그러다가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면, ‘열매’로 보람을 느끼고 사랑하며 산다. 그러다가 열매를 따서 먹을 때는 ‘몸’으로 보람을 느낀다. / 하나님도 인생들을 키우실 때는 ‘역사’로 보람을 느끼고 사랑하신다. 그러다 <신부 시대, 신부 열매의 때>가 되니 신부들과 일체 되어 사랑을 느끼며 휴거 역사를 펴신다.

37. 과수원의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 새들이 좋은 열매를 쪼아 먹어 버리기 전에 먼저 가장 좋은 열매를 따야 된다. 나무마다 열매들 중에 좋은 열매가 있다.

<2013년 9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조건이라도 ‘조건’이 크다.

2. 성자는 조건을 세웠을 때는 조건을 세운 것에 대한 계시를 주고, 조건을 못 세웠을 때는 못 세운 것에 대한 계시를 주신다.

3. 야곱은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조건을 세웠다. 실제 육체를 가지고서는 장자가 되지 못하지만, 그 ‘조건’에 의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잘됐다.

4. 조건을 작게 세워도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 되어 허락되고 결정된다.

5. 마음이 허락한 것은 몸이 허락한 것이다. 마음의 근본은 ‘뇌’라는 몸이다. 그러니 마음이 허락하면 몸이 허락한 것이다.

6. 항상 마음보다 몸이 먼저다. ‘뇌’는 몸의 지체 중 핵심이다.

7. 뇌라는 지체에서 작동하고 허락해야 마음에서도 느껴져 허락한다. 고로 먼저는 신령한 영이 아니라 육이다.

8. 시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그다음에 시계가 시간을 알린다. 톱니바퀴는 ‘뇌’라면, 시간은 ‘마음’과 같다. 고로 마음이 허락하면 몸이 허락한 것이다.

9. 흔적을 남기지 말아라. 흔적을 보고 조건 잡혀 문제가 일어난다.

10. 흔적을 찾아라. 그리하면 잡게 된다.

11. 겨울철에 번개같이 도망가는 산노루, 산돼지, 토끼는 모두 발자국이라는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게 된다.

12. 흔적은 ‘조건’이다.

13. 흔적은 100분의 1이지만, 100을 찾게 되는 증거물이다.

14. 육적 사랑을 하면, 공처가가 되어 여자한테 쥐여 산다.

15. 하나님과 성자가 준 사명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조건이 잡혀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까지도 못 다스린다. 고로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다.

16. 사탄에게나 세상 사랑에 잡혀가지 말라고 사랑으로 대하니 성자의 가치를 모르고, 성자께서 본체를 통해 잘못된 것을 조금 책망하면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원리 원칙대로 사명의 권위로 대하고, 죄로 다루고, 조건을 세우게 하며 다뤄야 된다.

17. 죄인도 조건을 세우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 주니 주의 은혜를 모르고, 모순을 말해 주면 고깝게 생각한다. 죄인은 조건을 세우는 기회를 주어 스스로 죄의 근성을 빼내게 해야 된다.

18. 전능하신 성자가 구원자의 몸을 쓰고 하신 계시의 설교 말씀에 전하는 자가 자기 말을 섞어서 전하면 그 말씀은 인간의 말이 된다. 곧 금에다 은을 섞는 격이 된다. 고로 그 말씀이 수준이 낮아진다. 그래서 설교에 자기 말을 못 섞게 하는 것이다.

<2013년 9월 6일 자체 기도회 말씀>

1. 인간 무지의 근본은 뇌가 굳었기 때문이다.

2. 뇌가 굳어서 기능을 못 하니, 그 굳은 것이 풀리지 않는 자는 평생 모르고 살아간다.

3. 인간 무지의 실상은 뇌가 마비되어 있는 연고다. 뇌가 굳어서 마비되었으니 전혀 모른다.

4. 자기 뇌가 굳어 있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시험해 보아라. 밤늦게 글을 쓰거나 일을 해 보아라. 최대한 잘했어도 100%는 못 했다. 자기는 “100%다. 잘됐다.” 하면서 했는데, 이틀 동안 밤잠을 푹 자고 뇌를 풀고서 새벽에 다시 보아라. 50%도 마음에 안 들게 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피곤하여 뇌가 기능을 못 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다. 밤잠을 자고 뇌의 피곤을 풀고 새벽에 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피곤할 때 했을 때보다 40% 이상 좋게 한다. 새벽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하늘과 통해야 된다. 새벽에는 뇌가 배 이상 기능을 잘하고 잘 기억한다.

5. 뇌는 피곤할 때는 판단 능력과 기억력이 50%, 30%, 10%밖에 기능을 못 한다. 정신만 차리고 할 뿐이지, 실상 뇌는 피곤하여 잘 감지하지 못하고 기능이 약해서 잘 못 한다.

6. 피곤하여 졸릴 때, 뇌는 기억도 거의 못 하고 판단도 거의 못 한다. 몸과 같이 뇌도 같이 졸고 있다.

7. 몸이 피곤하면 열심히 해도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지능이 낮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

8. 피곤을 풀고 뇌 기능이 좋을 때 해 놓은 것도 피곤할 때 다시 보면 마음에 들지 않게 해 뒀다고 하며 다시 고친다. 피곤할 때는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고로 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을 때 한 일이라도 피곤할 때 다시 보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손대게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이 좋을 때는 뇌 기능도 좋아지고 올라가서 차원 높게 살던 자도 신앙이 떨어져서 뇌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전에 잘한 것을 모르고 못했다 하며 다시 하게 된다. 뇌가 굳으면 모른다.

9. 뇌를 눈으로 비유하자. 자기 시력만큼만 본다. 눈으로 쳐다보기는 해도 시력 이상은 못 본다. 뇌도 마찬가지다. 뇌가 기능하는 만큼만 기억하고 판단하지, 그 이상은 전혀 생각 못 하고 산다.

10. 시력이 좋은 사람은 100% 본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90%, 80%, 70%만 본다. 안 보이니 잘 모른다. 옳은 것을 말해 줘도 그렇지 않다고 하며 잘 듣지 않는다. 뇌가 구시대로 기울어져 흐려진 기성이 그러하다.
11. 새 시대를 보는 뇌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은 시력이 좋아 100% 보는 자와 같다. 구시대인들은 그 차원의 뇌를 가지고 90%, 80%, 70%만 보고서 그만큼만 판단하니 잘 모른다. 말을 안 해 주면 모르고, 말해 줘도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는 않는다. 본인의 눈을 고치고 제대로 볼 때, 그제야 깨달은 자같이 확실히 안다.
12. 성자와 그 분체를 아는 것도 뇌의 시력이 낮은 상태에서 보면, 뇌가 그만큼 굳어서 더 이상은 안 보인다. 고로 성자와 분체를 똑같이 봐도 누구는 감탄하고, 누구는 보통으로 본다. 보통으로 보는 자는 지식이나 관념으로 보는 자라면, 뇌가 제 기능을 하여 100% 보는 자는 깨달고 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13. 영계에서 보면, 뇌가 굳어서 뇌의 시력이 낮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과 영의 뇌로 정상적으로 보기에 확실하게 알게 된다.
14. 기도를 깊이 하고 영계와 혼계에서 보면, 영의 뇌는 육의 뇌보다 1000배 높은 단계에서 보니 제대로 확실하게 보인다.
15. 뇌가 굳고 뇌의 시력이 낮으면 사고 나고, 일을 해도 낮은 단계에서 하게 되고, 무엇을 보고 판단해도 저차원적으로 판단하고 행한다.
16. 새벽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보고 행하기다.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낮에나 밤에도 깊이 기도하고 행하기다. 그러면 고차원 세계에서 행하게 된다.
17. 말씀은 고차원 세계의 말씀인데, 뇌가 굳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자들과 심령의 눈의 시력이 낮은 자는 자기 차원밖에 못 보고, 그만큼만 생각한다.
18. 성자가 옆에 있어도 영의 눈의 시력이 낮은 자는 못 느낀다. 시력이 좋으면 먼 데 있는 글씨가 보이듯이, 영의 눈의 시력이 높은 자는 성자도, 자기를 찾아온 영도 잘 감지하여 마음으로 잘 느낀다.
19. 시력이 낮은 자는 못 보는 것은 아예 못 본다. 이와 같이 뇌의 시력이 낮은 자는 영적인 고차원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20. 뇌의 시력을 높여라.
21. 가정국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뇌가 굳어 뇌의 시력이 낮으면, 자기 자녀가 이성 타락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녀도 전혀 모른다. 옆에서 말해 줘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뇌의 시력이 낮으면 못 보는 것이다.
22. 시력이 낮은 자는 잘 못 보듯이, 기성은 뇌 시력이 떨어져 있어서 새 역사가 펼쳐져 나가도 전혀 모른다.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새 역사를 전혀 모른다. 그들의 뇌 시력으로는 전혀 안 보인다.
23. 뇌가 굳은 자는 자기 뇌가 안 굳은 부분만 보면서, 그것이 100%라고 생각한다.
24. 눈이 흐려지면 보이는 것 외에는 안 보이듯이, 뇌가 굳으면 10년, 20년이 가도 자기가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
25. 육의 시력과 뇌의 시력이 떨어져서 복직이 어려우면 영의 눈과 혼의 눈으로 보아라. 그러면 보인다. 깨달아진다. 말씀도 깨달아지고, 전도할 자도 깨달아서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땅에 묻힌 것도 파내서 보화를 찾게 된다.

26. 자기 뇌의 시력을 높이면, 자기에게서 자기 보화를 찾게 된다. 자기 할 일을 찾게 된다.
27. 뇌의 시력을 높이고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낮은 차원만 보이고, 판단해도 낮은 차원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높은 차원으로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것이다. 먼저 굳은 뇌를 풀고 뇌의 시력을 높여라.
28. 오직 전능자의 높은 지혜로 판단한 대로 받아들이고 행하여라. 그래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행한다.
29. 뇌는 강하게 생각한 것을 결정한다.
30. 뇌는 보이는 몸이다. 몸을 보아라.
31. 몸은 보이는 뇌다.
32. 피로하지 않으면 눈이 잘 보이듯이, 뇌도 피곤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고 잘 판단하고 생각을 맑게 한다.
33. 새벽에는 뇌가 맑다. 이때 기도하고 생각하면, 잘 생각하게 되고 잘 깨달아진다.
34. 뇌가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여겨지고, 별로라고 생각하면 별로로 보인다.
35.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형상이다. 실상은 뇌가 육체를 쓰고 살아간다. 뇌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36. 육체가 있어도 '뇌'를 빼놓으면 육체는 죽는다. 뇌를 빼놓으면 숨도 못 쉬고 끝난다.
37. 사람은 '생각, 즉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은 '뇌의 이름'이다. 생각과 마음은 뇌에서 일어난다. 고로 사람은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뇌의 기능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작용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에 따라 혼과 영이 변화된다.
38. 육체인 뇌로 인해 혼체와 영체가 생겨서 살아간다.
39. 육체는 과일나무와 같고, 혼체와 영체는 열매와 같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이, 육체로 인해서 혼체와 영체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같이 창조하셨다.
40.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뇌'에 말씀하신다.
41. 몸을 다루듯 뇌를 다루라. 몸을 가만히 놔두면 기능이 떨어져서 활동량이 줄고 행하지를 못한다. 뇌도 그러하다.
42. 뇌는 생각과 마음으로 명령하고 할 일을 만들어 주면서 육신과 함께 행해야 된다.
43. 보이는 뇌는 몸이다. 몸은 뇌의 전개체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인다.
44.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일을 하여라. 그러면 네 뇌와 육체도 하늘 체질이 된다.
45. 늘 목표를 정해 놓고 꼭 행하기다.
46. 기도하여 뇌와 몸이 혼과 영과 일체 돼야 영적인 뇌와 영적인 육이 된다. 모든 사물이 만드는 대로 되듯이, 뇌와 몸도 만드는 대로 된다. 뇌와 몸을 연단하고 만들어라.
47. 육도, 뇌도, 정신도, 혼도, 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형상으로 만들면 수천 배 이상 기능을 하여 인

간으로서 보이는 신이 된다.

48.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100% 사랑하면서, 마치 한 사람과 연애하여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소망을 가지고 재미있게 목표를 향해 밤낮 행해야 된다. 성자와 주와 함께 행하기다. 전능하신 성자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인처럼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여야.

49. 성자는 대답을 ‘뇌’에 하신다. 그러니 매일 100번, 200번, 300번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대로 1000번이라도 성자를 부르면서 이야기하여야. 대답은 ‘뇌’로 온다. 칼날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불러라.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합당하면 각자에게 모두 대답하신다. 그 육체인 본체를 통해서 성자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50.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듯이, 성자 앞에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단 하루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성자를 사랑하면서 행하여라.

51. 뇌를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52. 뇌를 놀리면, 생각도 놀리게 된다.

53. 뇌를 놀리면, 생각도 놀리고 육도 놀리게 되어 허송세월한다.

54. 시간을 최고 알차고 가치 있게 보내려면, 기도하여 성자에게 간구하여 그 생각을 네 뇌에 받아라. 그리고 몸으로 행하기다.

55. 같은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되, 할 일이 많다. 몇 가지나 해야 된다. 수십 가지다. 그러니 그중에서 필요한 일만 하기다. 그래야 모든 일을 다 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56. 육신의 일은 가치가 별로다. 성자가 시키신 일이 최우선권이다.

57.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놀면서,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과 휴거시키는 일을 모르고 안 하고 산다. 알아도 가치를 모르고 안 하고 산다. 젊은 청춘을 무가치하게 살면서 한숨 쉰다.

58.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휴거시키는 일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어 그들도 시대를 쫓아 휴거되도록 성자를 깨우쳐 주는 일을 하여라. 네 영혼이 잘되는 만큼 네 육도 잘되고 형통하리라. 정녕 그러하리라.

59.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육의 할 일을 보아라. 할 일이 너무 많다.

60. 육의 눈으로는 육적으로 할 일밖에 못 본다. 뇌의 시력을 높여서 혼과 영의 눈으로 보아라.

61. 비유는 답이다.

62. 성자는 비유로 사연을 보이며 답을 가르쳐 주신다.

63. 성자는 만물로 사실을 비유하여 무언으로 답을 계시해 주신다.

64. 꿈에 내 육이 큰 밭을 10억에 사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내 육은 그 밭을 사서 인삼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 혼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10억에 그 밭을 사서 4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여 인삼 농사를 지으면, 유익이 10억 원이었다. 이때 내 육은 육의 생각보다 혼의 생각이 훨씬 더 차원이 높으니 혼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육이 그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이 투자한 것과 같으면 뭐해? 그냥 10억을 가지고 있지.” 하고 판단했다. 이같이 비유는 답이다. 육이 생각하는 것보다 혼과 영이 생각하고 행해야 유익이다.

65. 꿈에나 생시에나 성자는 비유로 무언으로 계시하여 보여 주신다. 깨닫고 행하여라.
66. 성자는 비유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몸으로 겪게 하시며 뇌의 그릇된 것을 보여 주신다.
67. 낮에나 밤에나 비유로 답을 받고, 성자께서 어떤 것을 비유로 답을 주시고 답을 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68. 생시에나 꿈에나 비유로 계시를 받았으면, 귀히 여기고 잊지 말고 신경 써야 된다. 생활하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때 받은 답을 써먹어야 된다.
69. (성자 계시) 기다리면 참나무에서 벗어난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70. 육으로 생각하고 보면 100% 제대로 본 것 같은데, 혼이 보거나 영이 보면 차원 높게 보니 다르다.
71. 어린아이 때 볼 때는 100% 옳다고 했다. 커서 보면 아니다. 크면 뇌의 판단의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육으로 생각할 때는 100%라고 생각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
72. 같은 시간에 자기가 판단한 것이라도 피곤하여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각한 것과, 피곤을 풀고 판단한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거나, 그 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새벽기도를 하고 성자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73. 뇌의 시력을 높여라. 눈으로 옳은 것을 보여 주기. 귀로 옳은 것을 들려주기. 몸으로 겪어 느껴서 알려 주기다. 그러면 근본체인 뇌가 제대로 알고, 잘못 입력된 것이 옳게 바뀐다.
74. 뇌의 시력을 높여라. 뇌의 시력은 어떻게 높이겠느냐. 계획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을 보아라. 계획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라. 하늘의 좋은 것과 영적인 것을 자꾸 뇌에 입력하여라. 그러므로 굳어진 뇌를 풀어라. 뇌를 풀지 않으면, 뇌 시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고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한 번에 뇌가 풀리고 뇌 시력이 좋아지겠느냐.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기간을 두고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여라.

<2013년 9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삼위의 ‘용서’라는 두 글자 때문에 영원히 산다.
2. 성삼위의 ‘심판’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
3. 성삼위의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지키면, 영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성삼위의 사랑 속에서 살게 된다.
4. ‘주님’이라는 두 글자를 절대 믿고 살면, 영이 천국에 가게 된다.
5. “하나님. 저 사람은 그 행위로 영이 지옥에 가고, 이 사람은 그 행위로 영이 천국에 가는데요... 지옥에 갈 자가 자기 영이 지옥에 갈 것을 안다면 어떨까요?” / “지옥에 간다 해도 미련해서 별로 쇼크를 안 받지.”
6. “성자 주님. 저 사람의 영은 지옥에 가고, 이 사람의 영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을 알려 주면 어떨까요?” / “천국에 갈 자는 믿고, 지옥에 갈 자는 안 믿지.”
7. “성령님. 저 사람의 영은 지옥에 가고, 이 사람의 영은 천국에 가는데, 이것을 알려 주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 “지옥에 갈 자는 지옥도 없다 하고 천국도 없다 하고, 천국에 갈 자는 알고 놀라 감격해서 울지.”

8. 지상의 천국의 삶이라도 얻어져 있으면 고통의 삶이다. 천국의 삶을 움직이며 살아야 된다.
9. 천국은 육신 쓰고 살 때는 마음에 있지만, 말씀대로 행하면 육도 느끼고 삶의 천국이 되어서 산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큰 사람을 찾아서 쓰실 때, 천천히 준비시키고 천천히 쓰신다.
11. 사람은 성공했을 때, 그때만 누리려고 한다. 성공하기까지의 기간이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누리는 기간이다.
12. 해가 졌다가 천천히 다시 떠서 천천히 비추다가 지듯이, 하나님은 인생도 천천히 준비했다가 천천히 행하다 끝나게 하셨다.
13. 왜 그 날만 기다리느냐. 그 날을 위해 준비하여라.
14. 인생은 준비했다가 하기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 행하지 못하여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
16. 사랑하는 자는 부엌에서 사니, 늘 먹고 산다.
17. 둘 중의 하나라도 잡아야 끌려온다.
18. 수문이 물을 쥐고 있듯이, 성자가 구시대 구원도 새 시대 구원도 다 쥐고 계신다.
19. 흔히 사람들은 “새 시대를 떠나면, 구시대에서 구원받지.” 하고 말한다. 성자가 구시대도 새 시대도 다 통치하시니, 성자는 새 시대를 떠난 자는 구시대에서도 버린 자 취급을 하신다.
20. 주가 ‘너’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도 귀히 여기고 대할 때 주와 일체 되지 못하면, ‘주’를 놓치고 ‘기회’를 놓친 자가 된다. 그 후에는 자기가 홀로 주를 귀히 보고 좇아 행해야 ‘주’를 잡고 ‘기회’를 잡게 된다.
21. 주가 볼 때 그 한 사람이 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그중의 한 사람이다.
22.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 하나를 귀히 보고 대할 때, 그때가 왕 앞의 왕비 같은 때다. 그때는 누구에게든지 자기 최고의 때다. 그러나 주의 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갈 때는 청중 속의 한 사람이다.
23. 월명동에 큰 소나무를 처음 캐다 심었을 때는 “섭리사에 경사가 났다!” 하면서, 매일 보고 좋아하며 잔치했다. 수년 동안 소나무들을 캐다 월명동에 심고 산에서 소나무들이 크니, 모두 거목들이 되었다. 고로 처음 캐다 심은 소나무도 많은 소나무들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기 때에 자기 영광이다.
24. 주의 시간을 나눠서 쓸 때 하여라.
25. 성자와 그 육이 가까이 대하고 역사할 때, 그때 행해야 휴거된다.
26. 바다에는 네가 보는 그 큰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다.
27. 시장에는 많은 과일들이 있다. 돌아다녀 보아라. 전도하러 갔다가 정한 자에 대한 기대가 어긋났다 하며 낙심하지 말고, 넓은 세상에 가 보아라. 사람은 많고도 많다.

1. 연장과 기구가 자기 것이라도 녹슬어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이상적으로 먹었어도 그 연장과 기구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이와 같이 자기 뇌 기구가 굳어서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마음의 다짐을 하고 생각을 좋게 하고 행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뇌를 고치라는 것이다.
2. 사람은 누구나 잘되려고 마음먹고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나 뇌가 굳어 있으면, 뇌가 풀린 데까지만 행하게 되니, 더하려고 마음먹어도 못 한다.
3. 사람이 차를 타고 멀리 가고 싶어서 멀리 가겠다고 마음먹고 가도 길이 1km만 닳여 있고 나머지는 안 닳여 있으면 못 간다. 이와 같이 아무리 마음먹어도 뇌가 작동하는 데까지만 하게 된다. 그러니 먼저는 뇌를 고치고 몸을 갈고 닳아 연단하라는 것이다.
4. 연필이나 펜을 창과 검으로 쓰겠다고 마음먹는다고 해서 연필이나 펜을 창과 검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뇌가 연필과 펜만큼만 능력이 있는데, 창과 검처럼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는 원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뇌와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여라!
5. 그릇은 밥그릇인데, 물동이로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고 해서 밥그릇을 물동이로 쓸 수 있겠느냐. 먼저 육체인 뇌와 몸을 단련해서 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강한 뇌와 몸을 가지고 마음먹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면 된다.
6. 나룻배를 뇌로 생각하자. 나룻배가 밧줄로 여기저기 묶여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숨 걸고 노를 젓는다고 해서 나룻배가 가겠느냐. 굳은 뇌의 밧줄을 먼저 끊어라!
7. ‘뇌’는 몸의 수만 가지에 사용되는 기구다. ‘마음과 생각’은 주인이다. 먼저 기구가 만들어져 갖춰져 있어야 주인인 마음과 생각이 마음먹는 대로 쉽게 해진다.
8. 먼저는 뇌를 닳고 만들기다. 즉 삶의 기구를 만들기다. 그리고 나서 마음먹고 정신일도 하고 하면, 불가능 없이 해진다.
9. 현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뇌를 어린 차원으로 맞춰 만들어 버린다. 고로 커서도 그 낮은 차원의 뇌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 몸과 마음은 컸는데 뇌가 크지 못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큰일을 못 한다.
10. 소년에게는 ‘차’를 주고 어른에게는 ‘자전거’를 줬다. 누가 마음먹은 대로 더 멀리, 빨리 가겠느냐. 기구는 뇌와 같다. 기구가 좋아야 마음먹은 대로 행해진다.
11. 뇌는 자기가 만들기에 달려 있다. 뇌는 보고 듣고 행함으로 만들어진다. 계획적으로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함으로 뇌를 좋게 만들어라!
12. ‘마음’은 희망이 하늘까지 닿아서 사는데, ‘뇌 기구’는 만들어 놓지 않아서 땅에 붙어산다. 그러니 목숨 걸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꿈대로 안 되는 것이다.
13. 뇌를 돌이라고 생각하자. 작은 돌인데, 아무리 마음먹고 신경 써서 웅장하게 쌓는다고 해서 대(大)조경이 만들어지겠느냐. 이와 같이 뇌가 굳어서 활동하는 것이 적은데, 그 뇌로 대결작의 역사를 하겠느냐.
14. 참새가 마음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독수리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사랑하려 하다가 죽을 것이다. 우리와 성자와도 그러하다. 그러니 먼저는 ‘뇌’를 키워라. ‘몸’도 단련하여 키워라. 뇌가 새만 하면 성자의 신부가 되어서 같이 살 수 없다.
15. 마라톤 선수가 금메달을 따겠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느냐. 먼저 심장을 2배, 3배로 키우

고 몸을 마라톤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행할 때 자기가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다. 여기서 ‘몸과 심장’을 <뇌>로 비유했다. ‘마음’은 ‘자기라는 주인’으로 비유했다.

16. 사람이 자기가 좋아서 행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뇌가 마음만큼 안 풀려서 그러하다.

17. 자기 자녀나 배우자나 애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 몸과 뇌를 만들어 놓지 않아서 그러하다.

18. ‘뇌’를 ‘집’으로 비유하자. 자기가 원하고 생각한 대로 집을 건축하지 않고서 자기가 원하는 집처럼 마음먹고 생각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집을 쓸 수 있겠느냐. 자기가 원하고 마음먹은 대로 쓰려면, 집을 그와 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 뇌를 원하는 대로 쓰려면, 먼저 만들어라!

19. ‘뇌’를 ‘강물을 건너가는 다리’로 비유하자.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놓고서, 군중들이 다 함께 건너갈 수 있다고 마음먹고 건너간다고 해서 건널 수 있겠느냐. 건너는 즉시 외나무다리가 부러져서 군중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 급물살에 떠내려간다.

20. 강물 위에 외나무다리를 만들어 놓고서, 한 사람씩 건너다가 급하다고 해서 군중들이 다 함께 건너자고 마음을 먹고 목숨을 다해 건넌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겠느냐. 모두 밑으로 떨어져 급물살에 떠내려간다. 먼저 강물을 건널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 자기 뇌를 외나무다리같이 만들어 놓고서 자기 마음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쓰다가는 사고 나고 실패한다. ‘뇌 그릇대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땅에 보낸 메시아나 선지자나 어떤 중심인물을 쓰실 때, 먼저는 ‘뇌와 마음’을 만들어 놓고 쓰신다. ‘뇌’는 기구라면, ‘마음’은 주인이다.

22. 사람이 아무리 마음먹고 몸부림쳐도 뇌를 만든 대로 거기까지만 해진다.

23. 목숨 걸고 살려고 했는데 왜 죽었겠느냐. 마음이 약해서냐? 살려는 마음이 없어서냐? 아니다. 뇌가 굳어서 그 생각만큼밖에 몸이 안 움직였기 때문이다.

24. 적에게 쫓겨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보고 “운이 없다. 사주팔자가 사납다. 마음이 약했다.”라고 조잘거리며 수백 가지로 입을 놀렸다. 그것이 아니다. ‘뇌’가 발달되지 않고 ‘몸’이 연단되지 않아서 몸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살려고 하는 마음은 하늘같이 높운데, 심장이 연단되지 않아서 뛸 때 숨이 가빠서 500m, 1000m, 2000m 3000m밖에 못 간 것이다. 산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해서 10000m씩 뛰어도 거뜬했기에 살았다.

25. 사람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어렸을 때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온갖 영광을 다 누릴 것이다.

26.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삼위의 말씀을 듣고 삼위를 사랑하며 행하는 만큼 뇌가 발달되게 하였고, 뇌가 발달된 만큼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행하게 하였고, 행한 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받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27. 남자와 여자 사이도 처음에는 마음이 좋고 생각이 풀려서 같이 살다가도 각자 ‘뇌와 몸’을 만든 것이 안 맞으니, 그 뇌의 체질대로 마음의 성질과 성격이 안 맞아서, 결국 갈라서게 된다. ‘뇌 문제’, ‘몸 문제’다.

<2013년 9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8.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로 이리저리 만들 수 있지만, ‘몸’은 한 번 타고나면 그 구조와 형태를 금방 만들지 못한다. 마치 키를 작게 타고났는데, 크게 만들지 못하듯 그러하다. 그만큼 ‘뇌’와 ‘몸’을 만들기 어렵다. ‘마음’은 금방 먹여지지만, ‘몸’은 운동해도 3년 이상 해야 되고, ‘뇌’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쉽게 단련되지 않는다.

29.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1년 동안 1차원으로 만들고, 1년 더 해서 2차원으로 만들고, 1년 더 해서 3차원으로 만들고, 마지막 끝매듭으로 6개월을 더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끝내면 절대 안 된다. 만든 다음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며 유지해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고, '영과 육'도 그러하다.
30. '몸의 구조'를 멋있게 만들려면 3~7년을 만들어야 된다. '뇌'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다. 지속적으로 매일 해야 된다. 뇌도 신앙도 관리하다가 안 하면, 마치 운동하다가 안 하여 몸의 형태가 변한 것처럼 바로 변한다.
31. 미인이 자기 얼굴을 정기적으로 마사지하고 관리해야 그 얼굴이 유지되고 빛나듯이, 자기 뇌와 몸과 마음과 생각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빛난다.
32. 월명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만들고 관리했기에 별빛에서 달빛같이 빛나게 되었고, 달빛에서 햇빛같이 빛나게 되었다.
33. 미인도 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빛을 잃는다.
34. 저마다 자기 '뇌'와 '몸'과 '마음'을 꾸준히 관리하기다. 그 관리는 성자와 분체와 매일 사랑의 교통이다.
35. 아무리 좋은 것도, 신앙도, 운동도, 만사의 모든 것도 무리하게 하면 순리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고장이 나고 병이 온다.
36. 자기 뇌를 만든 만큼 마음먹은 대로 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차원을 높여 가는 것이다.
37. 한 번에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매일 꾸준히 하는 지속적인 자가 되어라. 끝까지 가는 자가 되어라.
38. 절대 하나님과 성자와 그 분체를 중심하고 행하기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중심하면 되는 것이 없고, 생명도 연결되지 않는다.
39. <월명동>을 '확대시킨 뇌'로 생각하고 개발했다. 그러니 월명동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뇌도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 '뇌'를 개발하면 '몸'도 개발되고 '마음과 생각'도 개발되어 자신 있다!
40. 학교에서 학문을 배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도, 성공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뇌와 몸이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뇌와 몸을 만들면 자신 있다!
41. 뇌를 좋게 만들려면, 계획적으로 눈에 좋은 것을 보여 주고 귀에 좋은 것을 들려주면서 체질을 좋게 만들어야 한다.
42. 세상에서 못 보는 것은 기도하여 영계에 들어가서 보고 만들어 나오기다. 성자와 일체 된 마음으로 진리를 지켜 행하면, 뇌가 빨리 만들어진다.
43. 뇌를 안 만들어서 개발되지 않았기에 그동안 성자도 분체도 제대로 모르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면서, 마음만 바람이 스치듯이 신앙을 했다. 뇌를 만든 자는 성자와 분체가 천 리 떨어져 있으나, 옆에 가까이 있으나, 성자와 그 분체가 말하면 바로 듣고 교통한다. 스마트폰이 작동하면 통하듯 한다.
44. 만들어라. 그래야 가치가 나간다. 고로 전능자도 귀히 보고 대한다.
45. 만들어라. 그래야 빛난다. 고로 하늘도 땅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46. 자기를 만들어라. 뇌, 몸,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라.

47. 미약한 것도 만들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조은이 봐라.)

48. 월명동은 쓸쓸하고 초라한 작은 골짜기였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으로 만들었기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와 같이 너희 뇌, 몸, 마음과 생각을 신의 구상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첫째, 이것저것 다 만들어야 조화로워 아름답다. 둘째, 크게 만들어야 웅장하다. 셋째, 영의 세계를 개발하고, 성자와 본체와 일체 되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만들어야 신비하다.

<2013년 9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49. 글씨를 제대로 안 써 놓고서 목숨 다해 마음먹고 읽는다고 해서 읽어지나. ‘뇌’를 글씨로 비유했다. 뇌를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마음을 먹고 정신을 일도(一到) 해도 안 된다.

50. 자기 행위를 보면서, 밤낮 자기 뇌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지켜봐라.

51. 뇌가 발달되면, 그제야 개인·민족·세계·시대가 변한다.

52. 세계의 변천사를 보아라. 마음이 근본이냐. 아니다. 뇌가 근본이다.

53. 뇌가 발달되지 않으면, 마음먹어도 발달되지 않고 원시인으로 산다.

54. 뇌가 발달되지 않으면, 인생 100년을 살아도 발달된 자가 10년 산 것만큼도 행하지 못한다. 고로 인생의 보람을 못 느끼고, 혼도 영도 뇌가 발달된 만큼만 발달되어 영계에서도 그만큼밖에 혜택을 못 본다.

55. 어린 자들도 빨리 ‘뇌’를 발달시키고 만들어라. 어리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뇌를 발달시키고 만들어라. 뇌 발달에 따라서 ‘마음’도 만들기다.

56. 하나님은 종교도 사회도 시대가 갈수록 차원을 높이신다. 그러나 구시대에 해당되는 말씀만 계속 지키고 사니 원시인 종교가 되고, 사회도 문화도 원시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57. 뇌를 개발하고 만들어라. 그러면 마음·정신·생각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매일 삶이 달라진다. 보람찬 삶이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살기다. 삼위일체는 인간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내어 시대에 해당되는 말을 해 준다. 그 말을 듣고, 뇌를 개발하고 만들기다.

58. 뇌가 발달한 자가 몸과 마음과 생각이 발달한 자가 된다.

59.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뇌를 어느 정도 만들었고 개발했는지 알 수 있다.

60. 자기 뇌가 재산이다. 뇌는 부자가 되게 하고, 명예를 얻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원자폭탄과 같은 능력자다. 인간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먹고 마시면서 보람 있게 살라고 인간에게 ‘뇌’를 창조해 주셨다.

61.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근본이다. 생각이 근본이다.” 한다. 그러면 ‘뇌’를 다 빼놓고 마음먹고 생각해 봐라. 되느냐? 마음·정신·생각의 작용은 ‘뇌’에서 일어난다. <마음·정신·생각>은 ‘뇌의 이름’에 불과하다.

62. 뇌가 작동해야 생각할 수 있다. 뇌가 있으니 마음·정신·생각이 있는 것이다. ‘뇌와 육체’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깨달아라!

63. 뇌에 병이 생기면, 마음·정신·생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각 지체를 움직이지 못한다. 뇌를 수술하면, 바로 마

음·정신·생각이 제 기능을 하여 몸을 움직인다. ‘뇌 고치기’다!

64. 이를 다 뺐는데, 음식을 깨물겠다고 마음먹고 목숨 걸고 깨문다고 해서 음식을 잘 씹어 삼킬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할 수 있겠느냐. 이같이 ‘뇌’가 근본이다.

65.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감찰하시며, 그 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신다.

66. 성경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이마, 곧 네 뇌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해 주겠다.” 하셨다.

67. 기계도 고쳐야 강해진다. 뇌도 그러하다.

68. 마음을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지고, 혈기·분노·성질을 고치려 해도 안 고쳐지는 이유는 ‘마음의 근원인 뇌’가 고장 나서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어서 그렇다. 뇌 사진을 찍어 보면, 뇌세포와 뇌신경부터가 고장이 나 있다.

69. 차의 액셀러레이터가 고장 났는데, 절벽에서 마음을 다해 목숨 걸고 핸들을 튼다고 해서 되겠느냐. 살려면 정신일도 하여 차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차를 고쳐라.

70. 하나님은 앞으로 과학을 더 발달시켜 뇌를 찍어 보고, 그에 해당되게 뇌를 고쳐 쓴다고 하셨다. 새 역사 섭리사는 하나님과 성자께서 이미 가르쳐 주시어, 지금 하고 있다.

71. 구시대 신약역사는 자녀급으로 뇌가 굳어 있다. 고로 아무리 마음먹고 목숨 걸고 행해도 자녀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 역사 신부급 말씀을 듣고 뇌를 고쳐야 마음먹고 행하면 하나님과 성자의 신부가 되어 휴거된다.

72. 뇌를 볼펜의 심이라고 하자. 다 써서 볼펜의 심이) 없는데, 마음먹고 정신일도 하여 입술을 깨물고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글씨가 더 써지겠느냐. (성자께서 볼펜을 보고 깨우쳐 주셨다. 새벽에 볼펜 한 자루를 다 썼다. 벌써 두 자루째다.)

73. 뇌를 고치고 개발해 놓고 행하니,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랐다. 뇌를 고쳤더니, 마음먹고 행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다. 표적이 일어났다!

74.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이 ‘표적’이다.

75. 뇌를 성자의 뜻대로 정상으로 고쳐 놓으면, 매일 표적이 일어난다.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76. 뇌를 의학적으로 고칠 것은 뇌를 가르고 열어서 고쳐야 되지만, 뇌가 체질적으로 굳은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을 보고 듣고 행함으로 고치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 뇌를 고친 후에도 다시 굳어지지 않고 고장 나지 않게 된다.

77. 시계가 고장 나서 안 가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험하고 나쁜 시계를 사서 시계가 안 간다.” 하느냐. 뇌를 ‘시계’로 비유했다. “내 뇌가 나쁘다. 내 뇌는 험값이다. 그래서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못 하는 것이다.” 하지 말아라. 뇌를 고쳐라. 고치면 모두 ‘금 뇌’가 되고, ‘다이아몬드 뇌’가 된다.

78. 밤에 자고 나면, 새벽에는 뇌가 총명해진다. 그때 뇌를 고쳐라.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행하여라. 육이 행해야, 뇌신경이 육의 행위를 받고 움직여서 굳은 뇌세포가 풀어지고, 마음먹은 대로 그 차원만큼 가동된다. 고로 높고 깊은 차원의 것이 생각나고, 성자와 심정이 연결되어 교통하게 된다.

79. 뇌를 고치면 마치 레이더망을 고쳐 놓은 것같이 ‘미래’도 보고, ‘상대’도 보고, ‘성자와 성령님’도 상징으로 보게 된다.
80. 뇌를 고치면 땅속도 들여다보고, 작품을 만들 때도 뇌를 고친 차원으로 만들게 된다.
81. 뇌를 고치면 차의 좋은 엔진같이 시동이 안 꺼지고 행해지고, 남에게 안 시키고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 행해진다.
82. 좋은 뇌를 개발하지 않고서 초가집처럼 쓰다가 애간장이 다 타서 늙어 죽는다.
83. 뇌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육신으로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뜻을 이루어라! 그러므로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하고, <영>은 ‘천국’으로 휴거시켜 영원한 기쁨과 사랑으로 살자!
84. 뇌를 안 고치면, <육>도 ‘땅’에서 휴거되지 않고 <영>도 ‘천국’으로 휴거되지 않는다. 뇌 때문에 육이 행하지 못해서다.
85. 뇌를 고치면, 무한한 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행해진다.
86. 뇌성마비가 된 사람들을 보면, 눈으로 표가 나게 몸도 마음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들을 보실 때도 그러하다. 오늘부터 자기가 자기 뇌를 고쳐서 내일부터 빛나게 쓰기다! 그리고 뇌를 고친 만큼 차원을 높여서 원하는 것을 얻기다!
87. 축구 선수, 배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느냐. 마음은 간절한데 안 된다. 뇌를 안 고쳐서 몸이 말을 안 들으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88. 뇌가 고쳐져야 성자도 그 뇌를 통해 자신의 말을 전달하고 말씀하신다. 뇌가 고쳐지지 않으면, 성자가 원할 때 비상시에만 통한다.
89. 뇌를 고치면,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성자와 통할 수 있다. 뇌를 고쳐야 성자와 수신도 발신도 할 수 있다.
90. 뇌에 병이 나면, 빨리 늙고 빨리 병든다. 뇌를 고치면 회복된다. 뇌를 고쳐야 늙는 것도 막고, 병드는 것도 막아 정상이 된다.
91. 뇌를 안 고치면, 생각이 새 대가리처럼 된다.
9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를 하루에 300번 이상 부르고, 진정 감사하고, 진정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 행해 보아라. 뇌가 고쳐진다. 사탄도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
93. 선생은 하루에 300번씩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진정 감사하고 사랑했더니, 뇌가 고쳐지고 좋아져서 10개월 만에 책 7권도 외웠다. 그때는 펜과 종이가 없어서 뇌에 외웠다.
94. 정신만 집중한다고 해서 고장 난 뇌에 입력이 되겠느냐. 뇌를 고치고 입력해야 된다.
95. 말만 크게 한다고 해서 듣고 놀라겠느냐. 실제 존재물이 커야 모두 보고 놀란다.
96. 실체인 뇌를 고쳐서 능력 있게 행하게 해 놔야 실제로 놀라게 한다.
97. 월명동을 개발할 때, 먼저 실천자의 뇌를 고쳤다. 그 뇌로 현대 장비와 돌을 첨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월명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됐다.

98. 선생도 뇌를 고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돌을 보고 크다고 했다.

99. 뇌를 고친 후에야 큰 돌이 보였고, 큰 바위가 돌로 보였다.

100. 마음의 근본은 '뇌'다. 뇌는 인간 지체에 속한 몸체다. 뇌가 행하면, 마음으로 전달되어 마음이 느낀다. 마음으로 사랑한 것은 실상 '뇌'라는 몸으로 사랑한 것이 된다. 고로 마음으로 간음했어도 사랑의 죄를 지은 것이 되고, 마음으로 좋은 생각을 했어도 몸이 행한 것이 되어 공적이 된다.

101. 먼저는 신령한 영이 아니라 육이다. 먼저는 신령한 '마음'이 아니고, 육의 몸에 속한 '뇌'다.

102. 세상으로 따질 때는 육에 속한 '뇌'가 먼저다.

103. 인간의 몸을 먼저 만들지 않고서는 사랑의 대상체로 삼을 '마음과 혼과 영'을 못 만드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 '육체'를 만드셨다. 육체가 그리 중한 것이다.

104. 종교인들은 마음만 하늘로 향해 있다. 그러니 육이 약하여 뇌 발달, 몸 발달이 안 된다.

105. 마음과 혼과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차원으로 변화되어 사랑의 대상체가 되려면, '뇌와 육'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기능대로 만들기다. <육>은 '자기 혼과 영의 형상을 만드는 틀'이다.

106. 연단, 단련이다. 뇌와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기다. 그래야 마음먹고 하면 해진다.

107. 앓은뱅이가 마음이 없어 못 걷느냐. 뇌와 몸이 문제라서 못 걷는다. 현대인들이 그러하다.

108. 현대의 젊은이들은 제 마음대로 행하다가 뇌와 몸을 버려 버렸다.

109.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마음으로는 하지만, 뇌와 몸이 고장 나서 한계에 처해 실제로는 안 된다.

110. 섭리사에 위대한 생명의 말씀을 줬을 때 행한 자는 고쳐졌다. 고로 섭리사에는 뇌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날고 뛰는 자들이 많다.

<2013년 9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지에 온 자에게는 차도, 비행기도, 그 어떠한 것도 다 필요 없다.

2. 새 역사에 온 자에게는 구시대의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3. 새로운 신부를 맞은 자에게는 옛 여자의 장점도, 단점도,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4. 성자를 맞은 자에게는 그 어떤 자도 다 필요 없다.

5.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자는 예전에 살던 곳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장소를 가지고 갈 수 없다. 고로 옛 장소는 필요 없다.

6. 새로운 시대를 맞고 새로운 사명자를 맞은 자에게는 옛것은 필요 없다.

7. 성자의 법을 지킨 자에게는 성자께 가는 데 아무 절차도 필요 없다.

8. 집 짓는 것을 완성한 자에게는 시간과 자료와 연장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자기 사명을 다한 자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9. 법을 지킨 자에게는 법을 지키라는 교육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행한 자에게는 회개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
10. 새벽을 지킨 자에게는 성자께 가는 데 있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11.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난 자에게는 옛것이 다 필요 없다.
12. 감옥을 떠난 자에게는 감옥의 법과 제도와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새 시대에 사는 자에게는 옛것이 필요 없다.
13.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킨 자들이나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도 많다.
14. 병든 자에게만 의사도 병원도 필요하다.
15. 새 차로 바꿀 때는 고물차에 있는 엔진과 차의 유리가 아직 쓰기에 좋아도 다 버리고 새 차로 갈아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새 시대로 오는 자는 옛 시대의 것을 다 버리고 오는 것이다.
16. 새 차로 못 바꾼 자만 고물차가 필요하고, 고물차의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사러 가야 된다. 구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나 구시대의 제도와 구시대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새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는 구시대의 것이 다 필요 없다. 오직 새로운 역사의 주와만 일체 되어 살면 된다.
17. 못 한 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18. 새것이 어떻게 옛것과 비교되느냐. 새것은 옛것을 버린 자의 것이다.
19. 성자와 새 시대 사명자를 맞은 자만 알지, 못 맞은 자는 100% 모른다.
20. 얻은 자만 안다.
21.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얻은 자만 안다.
22. 새 역사에 온 자들이 옛 역사에서 살았기에 옛것에 대해서는 이미 아는 바다. 하지만 옛 역사에서 사는 자는 새 역사에 안 왔기에 새 역사의 것을 100% 모른다.
23. 새 역사는 새 역사에서 사는 자만 안다. 어제까지만 살았으면 어제까지만 알고, 오늘까지 산 자라야 오늘까지 안다.
24. 새벽에도 4시에 일어난 자는 3시에 속한 것을 모르고, 3시에 일어난 자는 2시에 속한 것을 모른다.
25. 못 한 자에게는 못 한 것에 해당되는 교육이 필요하고, 행한 자에게는 행한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6. 옛 시대에 있는 자들에게는 옛 시대에 해당되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고, 행하여 새 시대에 온 자들에게는 새 시대에 해당되는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다.
27. 죄를 안 지으면, 회개도 금식도 다 필요 없다.
28. 의인에게는 의인으로서 성자와 동행하는 것만 필요하다.

29. 악의 세계를 못 벗어난 자에게는 악평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의 세계를 벗어난 의인에게는 성자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교육과 휴거에 대한 일들이 필요할 뿐이다.

30. 꿈에 나는 갈 길을 가는 차를 탔는데, 우리 마을에 사는 동네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느라 아직 못 오고 있었다. 차는 그것 한 대뿐이었다. 물건을 사도 차가 떠나면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내가 애간장이 타서 운전수에게 이야기하니, 운전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하며 차를 몰고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그제야 동네 사람들은 시장을 다 보고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다. 꿈에서 깨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섭리의 제자들이었고, 나는 내 혼체였다. 수련회가 시작하는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도 달려오고 있는 자들을 보여 준 것이다.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다. 늦게 오니 말씀도 못 듣고 끝나고, 모든 것도 못 보고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못 보고 끝났다. 아예 안 온 자들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자들이다.

31. 육의 눈을 돌리는 대로 육의 것이 보이고, 마음의 눈을 돌리는 대로 영의 것이 보인다.

<2013년 9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환경만 바꾸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뇌를 좋게 바꾸고 몸을 연단하여 기쁨을 얻어라.
2. 환경이 갖춰진 곳이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기쁨을 얻으려면, 매일 자주 못 얻는다. 고로 뇌를 합당하게 바꾸어 마음에서 기쁨을 얻어라.
3. 뇌를 합당하게 바꿔 가면서, 마음에서 기쁨을 찾고 얻어라.
4. 사람은 색다른 환경에서 색다른 기쁨과 희망을 얻고 즐거워하려고만 한다. 그러면 매일 자주 그렇게 할 수 없다. 고로 근본적으로 뇌를 바꾸어 수시로 마음을 달리하면서, 마음에서 기쁨과 이상을 얻어라.
5. 사람은 뇌와 몸으로 살아간다.
6. 환경은 생각하면서 뇌에서 만들어서 보는 것이다.
7. 뇌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보이고, 마음으로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언제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까지 가느냐.
8. 자기가 어리면 크게 보이고, 크면 작게 보인다.
9. 주를 떠난 자는 성공했어도 망한 것이다.
10.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안 믿으니, 깨우쳐 주어라.
11. 천국에 관한 것을 말하면 안 봤으니, 천국에 대한 말을 들어도 못 믿는다. 땅의 것을 깨우쳐 주면서 하늘의 것도 깨우쳐 주어라.
12. 글을 쓸 때는 이미 해 놓은 것과 지금 하는 것들을 놓고 “할 것이다.” 하면 안 된다. “하였다.”라고 써야 하고, 혹은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써야 된다. 증거도 ‘끝’을 잘해야 된다.
13. 증거하는 자는 보낸 자의 심정과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증거하고, ‘진리’로 증거하고,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14. 보낸 자를 증거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결국 버림받게 된다.

15. 증거가 능력이다! 증거가 보낸 자와의 교통이다!

16. 자기를 증거하는 자는 자기중심이라서 안 된다. 보낸 자는 다 안다. 그러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17. 이단들은 모두 자기를 증거하여 신격화한다.

18. 자기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보낸 자가 가르쳐서 키워서 보낸 것이다.

19. 자기를 증거하면 사탄이 바로 역사한다. 이단들을 보아라. 자기를 구세주라 한다. 성자를 구세주로 증거하면 이단이 아니다.

20. 독립했으니 교세 확장을 해야 된다. 백성이 많아야 나라가 구성된다.

21. 섭리사는 부흥되기 쉽다. 한 군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200여 군데에 흩어져 있으니 기본 한계 인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전도할 자들이 있다.

22. 만일 어떤 한 교회에 만 명이 있다 하자. 한정된 한곳으로 모이니, 안정되어 더 부흥이 안 된다.

23. 수백 군데에서 전도하니까 전체가 불어나기 쉽다.

24. 시골 교회는 한정된 인원이기에 숫자가 안 불어난다. 선생의 모(母)교회인 장로교 석막교회는 30년 동안 1년에 한 명씩도 전도되지 않았다. 한정된 곳이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도 교인 수가 27~30명이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섭리사도 한정된 교회는 자기 집 식구들이 더 안 불어나듯 그러하다. 섭리사에서 군과 면에 있는 교회들은 한정된 인원이 있기에 잘 안 불어난다. 고로 선생은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하고 전도한 것이다. 도시에는 얼마든지 전도할 자들이 있다.

25. 교세 확장지는 도시다. 시골은 투자만 한다.

26. 도시는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된다.

<2013년 9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뇌 체질, 몸 체질, 마음 체질이다.

2. '체질'이란, 몸의 성질을 말한다. 뇌와 몸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3. 뇌와 몸이 좋게 변화되려면,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4. 추위를 잘 타던 사람이 체질을 변화시켜서 추위를 안 타야 체질이 변화된 것이다.

5. 체질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마치 몸이 그 차원의 주관권을 벗어난 것과 같다.

6. 뇌는 자체가 움직이는 상태로 생각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말로 명령하여 뇌가 자극을 받고 움직이기도 한다.

7. 뇌는 자체 기능으로 생각이 발생되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힐 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

8. 뇌와 몸을 온전히 연단하여 만들어 놓고, 기도하여 성자와 대화하고, 성자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기다.

9. 성자가 네 뇌와 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네 몸을 가지고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된다.
10. 뇌 연단, 몸 연단은 자기 책임이다. 뇌와 몸이 건강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체질을 변화시키기다.
11. 뇌 체질, 마음 체질, 몸 체질은 길들이는 대로 된다.
12. 차도 쓰는 대로, 길들이는 대로 성능을 발휘한다.
13. 쇠덩이도 길들이는 대로 강해진다.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히고 건조시키는 것을 반복하면, 쇠의 성질이 변하여 강해진다. 전자 제품 등에 들어가는 쇠는 쇠로 가공하여 50년씩 햇볕과 비바람에서 단련한 후에 쓴다.
14. 나무도, 식물도 길들이고 연단시키는 대로 그 체질이 달라진다.
15. 바위 위의 소나무, 사막의 식물을 보아라. 자연의 기후에 따라 길들여진 대로 체질화되어 존재한다. 사람의 뇌와 마음과 몸도 자기가 연단하고 길들이는 대로 만들어진다.
16. 먼저 약한 뇌와 몸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마음먹는 대로 쓸 수 있다. ‘체질 변화’다. 그리고 그 몸을 성자께 맡겨 강하게 쓰게 하여라. 나머지는 단련되고 체질 변화시킨 몸을 가지고, 그때마다 인간 책임분담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자의 뜻대로 쓰는 것이다.
17. 사막의 식물은 육지의 식물보다 10배 이상 강하다. 자연과 기후와 토질이 그리 만든 것이다.
18. 육지의 나무나 식물도 연단하는 대로 강해진다. 사람도 물질이니, 연단하는 대로 강해진다. 정신계에 속한 마음과 혼도 그러하다.
19. 자기 뇌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연단시키면 10배도 더 강해진다.
20. 자기 뇌와 몸을 전보다 두 배만 단련해도 연단하지 않은 사람보다 항상 앞에서 뛴다.
21. 자기 뇌와 몸을 연단하면, 건강도 상(上) 차원이다.
22. 만일 ‘마음과 생각’만 상(上) 차원에서 살고, ‘뇌 기능과 몸 체질’은 중(中) 차원에 있으면, 몸이 늘 피곤하고 병들게 된다.
23. 기계도 자체 기능은 B급인데 A급으로 쓰면, 결국 무리해서 망가지고 고장 난다. 이와 같이 사람의 ‘뇌와 몸’이 약한데 마음만 기쁘다고 몸의 한계를 넘어서 행하면, 몸이 안 따라 줘서 못 하고 무리해서 몸이 병든다.
24. 몸은 기본으로 존재하도록 운동하여 기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들도록 체질이 되어 있다.
25. 마음도, 생각도, 몸도, 뇌도 길들인 대로 시계처럼 돌아가고, 때가 되면 느끼고 반응한다.
26. ‘뇌와 몸’은 길들이는 대로 된다. 잠으로 길들이는 대로, 게으름으로 길들이는 대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길들이는 대로, 기도로 길들이는 대로 마치 천성으로 타고난 것같이 된다.
27.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뇌와 마음과 몸을 약하게 길들여 놓고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하며 한탄한다. 한 달만 연단시켜도 고치고 변화시켜 다른 뇌와 마음과 몸이 된다. 만들기에 달려 있다.
28.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다.

29. 몸을 연단하고, 뇌를 연단하고, 마음을 단련해야 휴거를 위해 행할 것을 쉽게 행하여 휴거된다.

30. 성자는 육과 마음과 뇌가 튼튼하여 늘 열렬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늘 열렬한 것’이 문제 해결법이다.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31. 삼위일체는 ‘인간의 뇌’를 무한대로 창조해 놓으셨다. 뇌만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으셨다. ‘뇌’라는 엔진을 쓰도록 ‘몸’도 거기에 맞춰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뇌와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면 무한대로 사용한다. 혼과 영까지 동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받아서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인간이 삼위일체의 상대 기준자가 되어 사랑하며 사는 차원으로까지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인간이 거기까지 행하며 살아야 된다.

32. 혼적인 것, 영적인 것, 신적인 것들은 ‘몸’이 따라 주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다. 그런데 ‘뇌와 몸’이 안 따라 줘서 못 한다. 고로 항상 ‘뇌와 몸 단련, 연단, 관리’다. ‘몸’만 따라 주면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상태이면 충분히 100% 완전하게 행하여 차원 높은 휴거에 오를 수 있다.

33. 마음에는 원해도 늘 ‘뇌와 몸’이 약해서 100% 못 하는 것이다.

34. 만들고 하면 된다.

35. 현재에는 안 돼도, 자꾸 훈련하면 능히 할 수 있다.

36. 누구나 무쇠 같고 초인 같은 ‘몸’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단하고 단련하지 않으니 무쇠 같고 초인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자꾸 하면, 점점 능력이 나타나 자신도 놀란다.

37. 나는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도 매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연단과 단련’으로 길들였기 때문이다.

38. 뇌와 몸을 연단하여 길들여 놓으니,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진다. ‘몸’이 무쇠 덩어리처럼 강해지고 ‘뇌’가 풀려야 마음이 흥분되어 성자의 역사를 느끼고, 그 사랑도 느끼고, 육도 혼도 영도 기뻐하며 행한다.

39. 약한 뇌와 몸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행한다.

40.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적응하여 그 사람에 맞게 대해 주었다. 이는 뇌와 몸을 연단하고, 마음과 혼과 영을 단련했기 때문이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기에 영육의 신앙의 초인이 된 것이었다.

41. ‘몸’은 만들고 길들이는 대로 된다. 겨울에 너무 추우니, 계속 따뜻한 물로만 샤워했다. 봄은 아직 쌀쌀하니, 따뜻한 물로 씻었다. 5월이 됐어도 따뜻한 물만 썼다. 그러니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차가운 물을 몸에 대는 것이 힘들었다. 여름이 와서 찬물을 몸에 대니, 너무 차가워서 또 따뜻한 물로 씻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따뜻한 물은 한 방울도 안 쓰고, 계속 찬물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여름에 그 차가운 지하수로 씻는데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몸 체질은 만들고 길들이기에 따라서 만들어진단다. 마음도 그러하다.

42. 사람을 대하는 것도 길들이기에 달려 있다. 상대가 조금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찬물을 끼얹는 것같이 느끼고, 그 꼴을 못 보고 못 견디는 자가 있다.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이다.

43. 사람들을 보면, 길들인 대로 산다. 먼저 네 뇌와 몸을 건강하게 길들여라. 그리고 네 마음을 성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길들여라.

44.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빨리 뇌 체질, 몸 체질, 마음 체질을 변화시키고 연단시키는 훈련에 들어가라. 그리고 만들어라. 그리고 성자와 주의 몸이 되어 사용하게 하여라.
45. 지도자가 약하면, 따르는 자들이 보기에 안쓰럽다.
46.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시켜 놓으면, 날아가는 시간과 함께 자기 뇌와 몸과 마음도 날아가면서 뛰고 달린다.
47. 왜 같은 세상에서 살고, 같은 섭리사에서 살면서 못 느끼냐. 실상은 뇌와 몸과 마음이 연단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느끼는 것이다.
48. 자기 뇌와 몸과 마음을 못 다스리면, 영이 휴거되지 못하여 천국에 못 간다. 만들면 다스려진다.
49. 먼저 ‘뇌’를 만들고, 그리고 ‘몸’을 만들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라. <기준>은 보이는 자는 ‘분체’이고, 안 보이는 자는 ‘성자’다. 분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도 표상이니, 그를 보고서 따라 배워라.
50. 지도자는 자기를 먼저 만들어라. 지도자는 머리다. 따르는 자들은 손발과 지체다. 머리가 돌아가야 모두가 평화롭다. 지도자가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따르는 손발들이 배나 고생한다.
51. 군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훈련하는 대로 육군이 되고, 공군이 되고, 해군이 된다.
52. 만들고 나서는 쓰기다.
53. 생활 속에서 만들기다. 그래야 생활하면서 행하기 쉽다.
54. 자기 삶의 터전이 자기를 만드는 훈련소다. 연단장이며 단련장이다.
55.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데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다. 자기 방,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이 훈련소다. 운동선수라면 운동장이 필요하고, 몸을 트레이닝 할 사람이라면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런 단련이 아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이고, 뇌를 영적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56. 어깨 근육을 단련하려고, 꼭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필요 없다. 집에서 맨몸으로 수영하듯이 하루에 700번씩만 해보아라.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근육 운동이 되고, 체력도 잡히고 연단된다. 뇌가 발달되면, ‘지혜’로 조각배도 균형으로 써먹고, 한 평의 땅도 대(大)운동장으로 써먹는다.
57. 영계에 들어가면, 육계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이 보인다. 뇌가 발달되면, 신적 차원으로 공중에 날아다니니 길이 필요 없다. 이 잠언은 영계에서 날면서 쓴다.
58. 구시대에 갇힌 자들은 뇌 연단, 몸 연단, 마음 연단을 해도 구시대 삶을 산다. 먼저는 구시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는 아무리 뛰어도 새 역사의 길을 가지 못한다.
59. 새 시대 성약시대는 말씀이 다르다. 고로 구조가 다르다. 고로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하고 만들면, 만든 대로 찬란하게 사용한다.
60. 새 시대가 왔어도 구시대에 사는 형제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통솔하시는 세계다.
61.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크고 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서야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와! 이런 것이 있었네?” 한다. 그러나 실상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늦게 깨우치고 늦게 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이상세계도 이미 땅에서 그 역사를 펴 나가는데, 뇌에 인식하지 못하여 그것을 모르고 이상세계만 찾아다닌다.

62. 일반 열차만 타던 자는 고속 열차가 나왔는지 모른다. TV에 나와도 이야기를 들어도 뇌에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 자기 인식대로 듣기 때문이다. 일반 열차를 타고서, 급하니 열차 안에서 빨리 가려고 뛰는 자들과 같다. 고속 열차는 값이 그리 비싸지 않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늘 고속 열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63. 하얀 피부도 햇볕에 태우면 검게 된다. 체질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검게 그을린 피부도 햇볕을 안 보고 관리하면 하얗게 된다. 뇌도 몸도 마음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성자의 위대한 말씀과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하게 하면, 온전히 변화되어 뒤바뀐다.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이라도 <영 휴거>가 됐다면, 그가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다.
2.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명예가보다, ‘영’이 휴거되고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사는 자가 최고로 성공한 자다.
3. 성자 분체는 성자가 그의 육으로 쓰시는 자다. 고로 분체는 구원자다. 고로 분체를 제대로 모른다면, ‘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4. 휴거의 최고 조건 중의 하나가 ‘분체의 사명을 알고 100% 절대 믿고, 365일 계속해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 그가 전하는 말씀을 행하는 것, 그를 중심하여 살면서 근본자 성자를 맞고 사는 것’이다.
5. 분체에 대해서 흔들리는 자는 휴거가 안 된 자다.
6. 분체는 시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7. 육계는 보이는 영계다. 영도 못 보고 혼도 잘 못 보면, 보이는 자기 육을 보면 된다. 자기 육을 보면, 자기 영과 혼의 상태를 알 수 있다.
8. 육이 분체에 대해서 흔들리면, 영도 혼도 흔들린다. 고로 그 영이 휴거의 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휴거된 영은 성자와 주와 일체 됐기에 흔들림이 없다.
9. 누구든지 혼이 신령해야 성자의 계시도 잘 받고, 분체가 주는 계시도 잘 받아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알고 더욱 온전하게 행하여 휴거된다.
10. 성자는 <육>으로는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영>으로는 ‘혼’을 통해 계시하신다. 고로 성자의 계시를 잘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를 잘 보고 ‘어떤 만물을 통해’ 계시를 전달하실지 잘 살펴야 된다. 둘째, 성자가 ‘어떤 사람을 통해’ 계시를 전달하실지 모르니 범사에 ‘사람’들을 잘 보고 합당하게 대해야 된다.
11. 성자는 꿈에나 기도 중에 합당하면, 혼체에게 계시할 것을 보여 주신다. 이때 육이 기도를 많이 해야 성자의 계시를 확실히 받는다.
12. 그런데 잠에서 깨면, 혼이 꿈에서 본 것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는 그 면에서 자기 육신이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고 행하며 살기 때문이다.
13. 고로 혼이 신령하려면, 육신이 신령하도록 기도를 많이 하고 생활 속에서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살고, 섭리의 사명자들과도 서로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된다.
14. 성자는 평소 육의 삶을 가지고 꿈에 혼체에게 계시해 주시거나, 사전에 혼체에게 그 육신의 행위를 보여 주신다.

15. <신령한 것>은 신령한 ‘혼’이나 ‘영’으로 분별하고 판단한다.
16. <신령한 것>은 성자께서 오직 그 본체를 통해 가르쳐 주신다.
17.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을 받아야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된다.
18. 선생의 마음도 선생만 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생의 마음을 받으면, 선생의 마음을 알게 된다. 선생이 이야기해 준다 해도 육이니 모른다. 고로 ‘영’으로 받아야 된다.
19. 편지를 써서 다 이야기해 줘도 온전하게 다 이해가 안 간다. 고로 기도하여 ‘영’으로 받고, ‘혼’으로 받고, ‘심정’으로 받아라!
20. 혼체 시대다. 신령한 시대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답을 받으려면, 기도하여 ‘혼체’로 ‘혼계’에서 난절하게 받아라.
21. 혼체 시대다. 신령한 시대다. 급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여 ‘혼체’로 ‘혼계’에서 답을 받아라.
22. 육에 속한 자는 ‘성령’과 멀고 ‘성령’에 대해 모른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중한지 모르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며 산다.
23.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성령과 멀기 때문’이다. 고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만일 그 사람이 지도자라면, 말씀을 전하거나 생명을 관리할 때 성령의 감동을 줄 수 없다. 성령과 멀기 때문이다.
24. 영에 속하여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꼭꼭 듣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여 <기도와 말씀과 성령>에 강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하다.
25. 휴거될 자들이 깊이 기도하지 못하여 ‘혼의 활동’을 모르면 안 된다. 주가 수년 동안 깊이 기도하여 ‘혼체 인봉’을 떼서 가르쳐 줬으니, 모두 혼체를 씹먹어라.
26. ‘스마트폰’은 육에 속해 있기에 늘 씹먹으며 산다. 수시로 문자가 왔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성자’는 그렇게 수시로 찾지 않는다.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수억만 배 더 뛰어난 ‘혼과 영’은 이 귀한 휴거 때에 그리 중요한데도 씹먹지 못하고 있다.
27. ‘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영의 상황도 보고, 영계의 화면도 보고, 각종 비밀도 보고, 앞날과 현실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회개도 하고, 자기 육과 영의 상황을 보아라.
28. 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것이 중요한지 분별하기 어렵다. 꿈을 통해 혼으로 볼 때는 ‘맨 끝’이 중요하다. 고로 맨 끝의 장면을 잘 기억하고, 잘 모르겠으면 기도해야 된다.
29. ‘혼’으로 보면, 창자 속까지 보이듯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행위가 확실히 흰히 보인다.
30. 혼으로 보라는 말씀이 선포됐으니 새벽에나, 낮에나, 초저녁에나 밤에나 방송을 하듯이 혼들에게 보낼 것을 보낼 것이다. 그동안 혼으로 보낼 것을 보냈어도 어떤 사람은 혼에 대해서 무지하고 차원이 낮고 신령하지 못하니 못 받았다.
31. 혼으로 보면, 더욱 확실하게 보인다. 섭리인 개개인에게 편지로도, 성자의 말씀으로도 구체적인 것은 다 말해 주지 못한다. 고로 혼체에게 답을 준다. 깊이 기도해라. 그러면 성자께서 꿈을 꾸게 하여 혼으로 각자에게 합당한 답을 주신다. 그러면 수만 명이라도 수시로 일순간에 혼에게 답을 주고 계시를 보내 주어 알게 한다.

32. 급한 것들과 개인적인 것들은 꿈의 계시로 혼에게 알게 해 주니, 이제는 모두 기도하여 자기 혼체를 신령하게 만들어야 된다.

33. ‘육 스마트폰’만 사용하지 말고, 1억 천만금 이상의 값이 나가는 ‘혼 스마트폰’을 사용하라.

34. 어차피 ‘혼이 신령해야’ 휴거된다. 혼이 신령해야 자기 육과 영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자기가 못 한 것을 행하여 휴거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 혼을 신령하게 만들어서 편지로 못다 하고, 말씀으로 못다 하는 깊은 것들까지 계시를 받고 깨달아라.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35. 성자는 본체로는 꿈에서도 영계에서도 못 나타나시니, 그 육으로 쓰는 ‘본체의 혼체나 영체’를 통해서 나타나 계시해 주신다. 성자가 본체를 통해 계시를 주셨으니, 꿈에 선생의 혼이 나타나도 실상은 성자가 나타나 계시한 것과 같다.

36. 선생의 영이 못 나타날 때는 선생의 육이 나타나 계시해 준다. 이것은 실상 선생의 영이 해 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성자의 육인 선생의 혼이나 육이 나타나 계시해 주면, 성자가 주신 것을 내 혼과 육이 받아 전해 주는 것이니, 성자가 계시해 준 것과 같다는 것이다.

37. 섭리사에 살아도 아직도 <성자 본체와 분체>를 모르고, <시대 말씀>을 확실히 모르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섭리사에 있으나 기성 주관권에 있는 자들로서 성자 본체를 2000년 전의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다. 새 시대에 왔는데도 구 시대 방식이 뇌에 입력되어 있는 자다.

38. 섭리사에 살아도 아직도 기성 주관권에 있는 자들은 성자 본체를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꿈에 성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다.

39. 앞으로는 성자도 분체도 ‘혼’으로 많이 나타나서 보일 것이니, 모두 ‘신령한 혼’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40. ‘자기 혼이 신령하도록’ 신령한 기도를 하고, 성자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41. 목사들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깊은 기도를 하여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42. ‘혼’으로 보면, 성자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가 풀리게 해 주시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고, 자기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게 해 주신다.

43. 앞으로는 ‘혼’으로 대화하고, ‘혼’에게 계시하여 시간을 쓰자.

44. 선생이 말로 어떤 모순이나 고칠 것을 말해 주면... 나이가 먹었어도,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됐어도, 교역자도, 지도자도, 큰 직책을 받은 자도 자기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선생을 오해하고 서운하게 생각한다. 선생이 살리려고 말하는데도 이유를 대며 섭섭하다고 한다. 선생을 제대로 모르고 관념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고로 앞으로는 ‘육의 대화’로 안 하고, ‘혼에게 계시’로 말하겠다.

45. 교역자에게도 모순이나 고칠 것을 말해 주면, 자기가 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서운하게만 생각한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꾸 서운해하며 선생과 충돌하니, 이제부터는 아예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성자께서 꿈에 혼으로 그 사실을 뜨끔하게 보여 주라고 기도한다. 꿈에 혼으로 계시를 받고도 온전히 제대로 안 하면, 그때는 자기만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46. 섭리사에는 교역자들과 작고 큰 지도자들이 7000명이나 된다. 사람들이 볼 때와 분체가 볼 때는 다르다.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보시기 때문에 다르다.

47. 행한 자는 전체 중의 90%를 행했다. 그런데 10% 못한 것 때문에 말해 주는 것이다. 그것을 해야 100%가 되니, 꼭 말해 주는 것이다.

48. 틀린 부분을 고치면 100% 완전한 글이 되듯이, 못한 것을 고치면 100% 완전하게 된다.

49. 사람들은 자기가 90% 잘한 것만 내세우며 “나는 잘못된 것이 없는데, 선생님은 잘못된 것만 말합니다. 서운합니다. 힘이 빠져서 못 하겠습니다.” 한다. 잘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잘한 것은 너무 많아 다 이야기 못 한다. 답이 틀린 것만 말해 주듯이, 못한 것만 말해 준다.

50. 본인이 자기 차원에서는 못 보고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51. 자기가 글을 쓸 때는 절대 안 틀리게 내용도 글씨도 제대로 잘 썼다고 했는데, 다 써 놓고 다시 보면 틀린 글씨가 많고 내용도 손보고 고칠 곳이 있다. 글을 쓸 때는 스무 가지 정도를 생각하며 써야 하는데, 한 번에 그 스무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면서 글을 쓸 수는 없다. 자기는 잘 썼어도 차원 높은 사람이 보면 틀린 것이 보인다.

52. 자기는 절대 신이 아니니, 잘못할 때가 많다. 신이 아니니, 절대 모순이 있다. 그 모순을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모순을 알고 말하는 자는 자기보다 높은 차원에서 알고 말한다.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자기중심으로 하면, 스스로 자기 길로 가 버린다.

53. 성자도 분체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중심’이다. 자기를 중심하는 자의 마음에 성자가 갈 수가 없고, 선생이 가도 걸돌기만 한다. 자기를 중심하는 자는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하니, 성자와 분체를 중심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다.

54. 본인들이 잘못된 것을 편지로 이야기해 주거나 설교로 내보내면 오해하고 오히려 선생에게 대항한다. 그러면 그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죽을까 걱정된다. 고로 이제부터는 기도를 깊이 하여 혼으로 받아라.

55. (성자) 말로 하면 오해하고 대항한다. 그러니 말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혼’으로, ‘영’으로, ‘만물’로 깨우쳐 주겠다.

56. 혼체 시대다. 신령한 시대다. 이제부터는 선생이 나타나서 ‘혼’으로 성자의 계시를 전해 주고, 어떤 환경을 보여 주면서 말해 줄 것이다. 고로 그 계시가 성자의 계시라는 것을 알고, 또 자기를 구하는 자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꼭 지켜야 된다.

57. ‘혼과 영이 신령하도록’ 매일 진실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육의 생활을 잘해라. 그래야 자기 혼이 혼계에서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된다. 자기 육이 기도하지 않아서 혼이 신령하지 못하면 혼에게 계시를 줘도 못 받으니, 휴거에 큰 지장이 있다.

<2013년 9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58. 혼이 신령해야 성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를 받고 행한다.

59. 혼이 신령하려면, 육이 기도하고 제대로 배워야 된다.

60.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 환난으로 교회에 못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일에도 수요일에도 주일말씀과 수요일말씀을 편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듣는 자, 선생이 행하는 공적 말씀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시험이 온다. 그런 자는 혼이 신령하지 못하다. 고로 행할 것을 행하지 못한다. 고로 휴거에 지장이 생긴다.

61. 말씀은 무기요, 갑옷이요, 양식이다.

62. (성자) 습관적으로 주일예배, 수요일예배를 정식으로 드리지 않는 자는 <섭리의 법, 성자의 법>으로 절대 단상의 강사나 집회자로 세우지 말아라.
63. 지도자라면, 주일 성수를 꼭 하고, 성자께서 재림과 휴거 때에 진행하시는 성령집회에 참여하여 꼭 성령을 받고, 공적 집회 때는 꼭 참여하여 말씀을 들어야 된다.
64. 그렇지 않으면, 섭리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전할 때 잘못 말하고 실수하여 섭리인들이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눈치챈다. 그러면 모든 섭리인들 앞에 모범이 되지 않으니, 더 이상 사명을 할 수 없다.
65. 선생이 여기 있어서 육은 못 가지만, 선생의 육이 되는 자를 통해서 섭리의 공식 집회 때나 성령집회 때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주일에는 성삼위께서 직접 좌정하시어 예배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을 주신다.
66. 교회 강사도 주일예배, 성령집회, 섭리사 공식 집회에 빠지면서 강의하는 것은 모순이다.
67. '형식과 외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절대 통과할 수 없다.
68. 혼이 신령해야 정확하게 보고 분별한다.
69. 혼이 신령해야 말로 못다 하는 것은 혼으로 계시를 받아 안다.
70. 어차피 휴거되려면, 혼도 육도 신령해야 된다.
71. 말씀이 선포됐으니, 모두 신령해야 된다.
72. 기도를 조금 하고 신령하려 하지 말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자기 뇌 체질, 몸 체질을 변화시켜라.
73. 선생도 결심하고 계속해서 '조건 기도'를 하면서 무섭게 행하고 있다. 섭리인들의 휴거와 섭리사의 질서를 위해 <섭리의 법>을 만들려고 계속 조건 기도를 하고 있다. '법'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다.
74. 선생도 계속 조건 기도를 하면서 뇌와 몸을 연단시키니, 뇌와 몸의 체질도 더 좋게 변화되었고, 상황도 변화되었고, 육의 삶도 영도 변화되었다.
75. 모두 계획적으로 한 기간을 두고 조건을 세우며 기도해야 된다.
76. 잠깐 하다가 말고, 조금 하다가 말면 되는 일이 없다. 자기가 한 만큼만 된다.
77. 지금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다. 선생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줘야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이 때다!
78. 기도도, 자기 뇌 체질과 몸 체질을 고치고 만드는 것도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쉬운 기도도 안 하고, 자기 굳어진 뇌를 고치지도 않고, 자기 약한 몸을 연단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그대로 가다가 100배, 1000배 손해를 보며 안타깝게 산다.
79. 선생은 성자의 분체로서 세울 조건은 섭리사를 위해, 따르는 자들을 위해 다 세워 주고 간다. 그러니 이제 본인들만 자기 책임을 하면 된다.
80. 사탄 편, 가인 편은 하늘 편, 아벨 편과 싸우고 다룬다. 그러다 시대가 가면 갈림길에서 갈려 가는 운명이다. 그러

나 섭리인들은 평생 영원히 같이 가야 될 신부들이다. 그러니 서로 화평하고,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조건을 세우는 데 같이 도와주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서로 유익이다.

81. 혼을 신령하게 만들어라. 혼이 신령해야 성자가 성자의 욕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 줄 것을 보여 주고, 말해 줄 것을 말해 준다.

82. 혼이 신령하려면 기도해라. 기도하여 신령한 자들이 되어라.

83. 성자가 욕적으로 계시할 때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 주신다. 그러나 자기가 기도해야 성자의 계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84. 혼은 자기 욕신을 통해 신령해진다. 고로 저마다 자기 욕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하게 하며, 욕이 성자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85. 자기가 할 일은 자기 욕이 해야 된다. 자기가 할 때까지 짐은 떠나지 않는다. ‘고통’은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못 해서 자기 때문에 오기도 한다. 자기가 책임을 못 해서 고통을 받는 것인데, 이를 모르고 형제가 잘못해서 고통받는 것으로 알고 형제만 원망하며 형제를 다투는 대상으로 삼는다.

86. 매일 화평과 사랑으로 말씀 중심, 성자 중심, 주 중심하여라.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혼을 신령하게 만들어야 성자도 주도 계시해 주기 쉽다.

2. 혼을 신령하게 하려면, 욕이 신령한 기도를 해야 된다.

3. 혼을 신령하게 하면, 욕의 행위의 차원을 잘 본다.

4.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사탄의 주관을 받고 하는 것이다. 고로 심판하지 못한다. 심판하면, 사탄이 행한 것을 시험에 든 자가 한 것으로 보기에 그로 인해 심판받기 때문이다. 이때는 먼저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 기간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 그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을 한다.

5.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탄에게 무력으로 침범을 당해 순간 불의를 행한 것은 사탄에게 90% 심판을 돌리고, 불의를 행한 자는 10% 심판을 받는다. 이는 기도하지 않고 행하여 사탄이 왔기 때문이다. 10% 심판을 받더라도 먼저는 회개 기간을 주신다. 그때 회개하면 심판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6. 자기 혼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자기와 상관있는 것을 볼 때도 있다. 자기 혼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된다.

7. 욕계는 얇고, 영계는 깊다.

8. 욕계는 잔디밭 같고, 영계는 밀림 같다.

9. 욕계는 욕이 살기에 합당하고, 영계는 영이 살기에 합당하다.

10. 섰을 때는 서서 할 일을 하고, 앉았을 때는 앉아서 할 일을 해라.

11. 앉았을 때 서서 할 일을 하면 되지도 않고 힘만 든다. 섰을 때 앉아서 할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프고 힘들다.

12. 마음이 섰을 때 해라. 몸이 섰을 때 해라.
13. 욕으로 행하면 뒤로 가는 속력이 나고, 영으로 행하면 앞으로 가는 속력이 난다.
14. 그 단계를 직접 겪으면서 그 단계의 잠언을 깊이 써서 쥐도 그 잠언을 받아서 보는 자가 그 단계를 겪지 못하면 생각의 눈으로만 읽으니 깊이 와 닿지 않는 것이다.
15. ‘몸’은 자세대로 굳어지고, ‘뇌’는 생각과 행위대로 굳어진다.
16. ‘기도하면’ 할 일이 생각나고, 잊어버렸던 것이 기억나고, 그것을 잊지 않고 행하게 된다.
17.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게 되니, 삼위가 자기 할 일이 기억나게 도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18. ‘기도하면’ 모르는 것에 눈을 뜨게 된다.
19. ‘뇌’는 그 기능이 첨단이다. 고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것들을 뇌에 넣어 주고, 보여 주고, 듣게 해 줘야 뇌가 발달되어 크게 돌아간다.
20. 뇌가 발달된 자는 ‘해’와 같다. 뇌가 발달되지 못한 자는 ‘달’이나 ‘별’과 같다. 고로 아는 자의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21.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참으로 약한 존재가 돼 버린다.
22. 강자가 되려면 행하여라!
23. 원수를 갚는다고 고생하며 조건 세울 것 없다. 원수는 행한 대로 받고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24. 왜 조건을 세우는가? 영원한 세계에서, 또 욕이 세상에 있을 때 더 찬란하게 살기 위해서다.
25. 원수는 행한 대로 사망으로 가니, 그들을 놓고 조건을 세워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 자기를 위해 조건을 세워라. 그리함으로 욕과 혼과 영을 더욱 빛나게 하여라.
26. 작은 개미도 몸에 독을 품고 다닌다. 고로 개미를 해하려 하면 개미가 물어 고통을 준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27. 개미가 물어도 괴로운데, 수백만 배 더 독종인 사탄이 물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28. 그때는 내가 후회했지만, 지금 일생 동안 네가 후회할 것이다. (인봉의 답이 있음.)
29. 주의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주가 마음 아파한다. 너는 편하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때는 문제가 해결되어 주는 기뻐한다. 그러나 너는 주가 시킨 일을 안 했으니 일생 동안 후회한다.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나 생시에나 성자는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 주신다. 고로 성자의 계시를 받으려면, ‘만물과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비유로 드는 만물의 특성과 사람의 특성과 마음과 행위로 알게 된다.
2. 꿈에 특이한 바닷고기나 문어를 보여 준 것은 ‘그 사람이 특이한 바닷고기나 문어와 같다.’ 함이다. 그 사람도 그러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것도 그러하다 함이다.

3. 사람의 생김새나 성격이나 행위를 동물이나 물고기나 나무로 보여 주니, 보여 준 것을 풀어야 된다.

4. 전지전능하고 신비한 삼위일체는 인간의 얼굴만 정교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손가락, 발가락, 손 전체, 발 전체, 각 지체 하나하나의 구조를 모두 다 정교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고, 그 기능을 웅장하게 창조하셨다.

5. 삼위일체의 기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는 세상 남자들같이 눈, 코, 귀, 입 등 각 지체가 다 있다. 성령님도 여성 신으로서 세상 여자들같이 100% 각 지체가 다 있다.

6. 영체의 구조는 육체의 구조보다 더 푸짐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크다.

7. 영계에 가 보면, 발달된 영들은 발달된 지역에서 다른 영들보다 1000년이나 앞질러서 살고 있고, 어떤 영들은 더러운 곳에서 짐승같이 살아간다. 그 영들은 옷이 없어 벗고 살고, 얼굴도 어둡고, 몸도 까맣고, 먹는 것도 다양한 식물이나 열매나 뜯어 먹으며 살고, 집도 나무거치를 엮어서 만들어 살고 있다.

8.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단계>를 거쳐 창조하셨다. '6'을 사탄 수로만 알고 있는데, '6'은 <창조수>이기도 하다. <창조가 끝나는 수>다. 역사도 '6수'에서 창조하고 기르는 때가 끝난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해서 6000년이다. 6000년에서 '6수' 역시 신구약 재창조가 끝나는 수다. 그리고 1000년 성약역사가 시작되어 7000년 역사에 접어든다. 여기서 '7수'는 <쉬는 수>다. <완전수>다. 성약역사는 '7수'에 해당된다. 1000년 성약역사 시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사는 기간이다. 또한 <영>은 휴거되어 천국에서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육>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땅의 구원자를 육으로 쓰고 행하는 역사에 참여하여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사는 기간이다.

9. 인간의 지체 중의 팔과 다리를 보면, 하나님은 '여섯 마디의 뼈'로 창조하셨다. 얼굴도 6개의 지체로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 팔 - 손끝부터 손가락 하나에 세 마디 뼈, 그리고 그 밑에 손바닥까지 한 마디, 손목에서 팔목까지 한 마디, 팔목에서 어깨까지 한 마디 : 총 여섯 마디 * 다리 - 엄지발가락 제외하고 발가락 세 마디 뼈, 그리고 발바닥까지 한 마디, 발목에서 무릎까지 한 마디,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한 마디 : 총 여섯 마디 * 얼굴 - 눈 두 개, 코 한 개, 입 한 개, 귀 두 개 : 총 여섯 개

10. 사람의 구조 전체도 여섯 개로 구상하셨다. 머리 - 가슴 - 골반 - 허벅지 - 종아리 - 발... 이렇게 여섯 덩이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6수'는 창조수다.

11. 하나님이 구상한 <야심작>도 총 다섯 번 무너지고 여섯 번째에 완공했다. / 처음에는 '석회석'으로 쌓았다. 그런데 깨지고 무너졌다. / 그래서 두 번째로 깨지지 말라고 '대리석'으로 쌓았다. 그런데 돌이 앞으로 쏠려 무너졌다. / 세 번째에는 '호피석'을 중심해서 쌓았다. 또 무너졌다. / 네 번째에는 '발 돌과 애석'을 섞어서 쌓았다. 또 무너졌다. / 다섯 번째에는 '깨지지 않는 돌들'을 총동원해서 쌓았다. 또 무너졌다. / 여섯 번째로 '자연석'을 사 오고, '운동장에 세운 작품 돌들'을 총동원해서 쌓았다. 이때 호피석 광산이 문을 닫는다고 하여 최대한 큰 돌들을 사 왔다. 완성되니, 안 무너진다.

12. 몸의 신경은 '통신선'과 같고 '전기선'과 같다. 신경이 살아 있고, 피가 살아 있고, 살이 살아 있어야 제대로 느낀다.

13. <신앙>도 몸이 활동하여 살아 있고, 마음이 살아 있고, 굳은 뇌가 풀려 살아 있고, 혼이 살아 있고, 영이 살아 있어야 제대로 느낀다.

14. 신경이 하나만 남아 있어도 부분적으로 차고 더운 감각을 느낀다. 신앙도 한 가닥만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서 느낀다.

15. 모든 신경이 정상적인 사람은 많이 느낀다. 신경이 일부분만 살아 있는 사람은 일부만 느낀다.

16.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말씀을 해 줘도 뇌신경이 일부 굳은 자는 죽은 듯 잠자는 자와 같아서 일부만 느낀다.
17. 좋은 말씀을 주기보다 먼저 뇌신경을 풀어 잠을 깨워 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시대 말씀을 전해 줘야 된다.
18. 잠자는 자는 먼저 잠을 깨워 주고 나서 말씀을 주고, 강의해 주고, 사연을 이야기해 주고, 시대 이야기를 해 주기도.
19. 뇌의 인식과 마음과 생각이 서쪽으로 가 있으면, 100% 동쪽 이야기만 해도 서쪽에서 행한 것으로 안다.
20. 인식관을 깨워 다시 메모리 하고 저장하기다.
21. 부르기는 ‘팔’이라 부르면서 인식은 ‘콩’으로 하고 살면, 영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22.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인생들을 구원했지만,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달리 인식하고 악평하고 불신했다. 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선생’, 혹은 ‘형제’, 혹은 ‘의인’, 혹은 ‘모세가 오리라고 한 자’, 혹은 ‘의사’, 혹은 ‘반석’, 혹은 ‘하나님의 사역자’, 혹은 ‘주인’, 혹은 ‘신랑’으로 그리스도를 인식시켰다. 제자들은 근본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따랐다.
23. 어느 시대든지 세상이 악하고 불신하면, 불신하지 않는 쪽으로 인식을 시키고 명칭도 붙인다. 목적만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목적은 목적이다.
24. 개인도 근본을 제대로 알고 각종으로 인식하여 지혜롭게 행하여라.
25. 근본을 가지고 비유로 표현하여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부르는 것을 모르는 자는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죄 문제, 구원 문제, 휴거 문제, 말씀 문제, 사랑 문제 등 모든 근본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사는 자가 된다.
26. 집에서 아버지가 치타 새끼를 기르고 싶은데, 아이들이 고양이와 개 외에는 싫어하고 때리고 미워하니, 아버지는 치타를 고양이라고 바꿔서 불렀다. 치타가 크니, 크기도 모양도 고양이 같지 않았다. 이에 자녀들도 동물 책에 나온 사진을 보고, 스스로 그 동물이 치타라고 인식을 바꾸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것은 고양이가 아니라 치타예요.” 했다. 이 시대 하늘이 보낸 자도 그러하다.
27. 아는 자는 바로 인식하고 동쪽을 동쪽이라 부르건만, 모르는 자는 동쪽을 서쪽으로 알고 부르며 산다. 고로 “언제 나는 동쪽에서 살지?” 한다.
28. 변장하고 나타난 임금도 아는 백성들만 알고 대한다. 아는 만큼 대한다.
29. 전능하신 성자는 변장하고 세상에 재림하셨다. 아는 자만 아는 만큼 자기를 성자의 대상으로 만들어 성자를 모시고 사랑하며 산다.
30. 신부는 더하고 빼면 끝난다.
31. ‘의와 사랑’은 성자 앞에 더하고, ‘죄와 자기 생각과 세상 사랑’은 성자 앞에 빼기다.

<2013년 9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면, 선악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산다.

2. 판단력이 확실하려면, 선과 악을 배워야 된다.
3. 사람이 '모르니', 판단력이 흐린 것이다.
4. 어떤 물건이 있는데 같은 값이라도 그 물건이 좋은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물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5. 사람이고 물건이고 알면, 판단을 빨리하게 된다.
6. 아는 만큼 판단은 확실하다!
7. 판단이 흐리고, 분별을 못 하고, 차원의 차이를 못 느끼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8. 물건이고 사람이고 알고 파악하기다.
9. 두 가지를 놓고 50대 50으로 판단되면,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한다. 파악할수록 두 가지 중의 어느 한쪽이 더 낫게 보인다.
10.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으니,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 파악해야 된다. 그래야 답을 알 수 있다.
11. 어떤 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판단의 스승이 되기도 하고, '그 일을 경험한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판단하는 방법이다.
12. 어떤 일을 두고 자기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자기 실력으로도 판단이 안 될 때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이 있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여 성자에게 물어서 답을 받아야 된다. 자기 지식과 경험의 판단이나 모든 자들의 판단으로도 월등하게 좋은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고 하면 안 된다.
13. 하나님과 연관된 일은 반드시 기도하여 성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14.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며 행하시니, 인간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고로 판단은 주께 맡겨라.” 하셨다.
15. 사람의 육의 뇌의 지능은 혼과 영의 지능보다 훨씬 차원이 낮다. 고로 기도하고 영의 세계에 가서 성자에게 간구하고 보여 달라고 해라. 그러면 둘 중에서 무엇이 좋은지 확연히 표가 나게 알 수 있다.
16.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기가 일순간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다른 것보다 별로여도 그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인다.
17. 마음의 인식관대로 더 좋게 보이고,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18. 고로 저울에 달아 보고 자로 재 보듯, 확인하고 해라.
19. 존재물의 방향에 따라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실제보다 더 넓게 보이기도 하고, 더 크게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어떤 사건도 착시에 의해 더 크게 보이고, 더 좋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
20. 철길 양쪽 선로의 넓이는 똑같다. 하지만 멀리서 쳐다보면, 앞의 선로가 보다 좁게 보인다. 원근법에 의해 그리 보인다. 거리에 따라 두 가지가 원근법에 의해 달리 보이듯, 사람이 무엇을 보고 판단할 때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고로 처음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는 잘해야 된다. 한쪽 일은 될 것 같고 다른 한쪽 일은 잘 안 될 것 같아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

21. 정확한 계산으로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

22. 분별의 은혜와 사명을 받아라! 그러면 ‘분별’에 눈을 뜬다.

23. ‘지혜와 지식’이 옳게 분별하게 해 준다.

24. 오직 먼저 성자의 뜻을 알고 판단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013년 9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몰라서 못 한 것이 그렇게도 억울하다.

2. 알았으면 했건만 몰라서 못 했으니, 모르는 것이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3. 무엇을 못 해서 무엇이 안 됐는지, 그조차도 모르고 고통 속에서 산다.

4. 모르는 것이 억울한 것이다.

5. 모르는 자는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 무엇을 몰라서 무엇이 안 됐는지, 아예 모르고 산다.

6.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라.

7. 인간에게 ‘무지’같이 큰 고통은 없다.

8. 인간은 무지하다.

9. 신은 알고, 인간은 모른다.

10. 무지를 벗어나도록 ‘절대자 성자’를 배워라.

11. 무지를 벗어나도록 성자를 배우려면, 성자를 가르치는 자를 만나라.

12. 배우는 대로 무지를 벗어난다.

13. 전능자 하나님은 다 아신다.

14. 알면, 인간으로서 신이다. 물어보고 간구하며 배워라.

15. 배우고 행해야 무지를 벗어난다.

16. 알고 행하면 신이다.

17. <성자의 축복>은 ‘알게 해 주는 일’이다.

18. 몰라서 못 한다.

19. 매일 배워 무지를 벗어나라.

20. 아는 자의 것이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의인에게 알려 주신다.
22. 아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23. 아는 자가 볼 때 모르는 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깨달아라.
24. 아는 것이 축복이다.
25. 거기에 합당한 복을 성자가 주어 받았는데도 모르면,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
26. 전능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신이다.
27. 네가 아는 것이 복이다.
28. 네게 준 복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29. 아는 것이 금덩이요, 보물이다.
30. 알고 행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31. 지옥에 사는 자와 사망권에 사는 자는 모른다. 몰라서 지옥에 갔다. 특히 하나님을 몰랐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어 그를 통해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휴거시켜 천국으로 인도하는지 모르면, 천국을 예정하고 복을 줘도 못 간다.
33. 알지 않고서는 되는 것이 없다.
34. 무지로 인생은 망했다.
35. 알면 산다.
36. 모르면 죽는다.
37.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알려 주신다.
38. 성자를 전심으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성자가 그 욕을 통해 알려 주신다.
39. 주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에게만 알려 주신다.
40.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몰라서 '무지'에 갇혀 산다.
41. 아는 만큼 무지에서 벗어난다.
42. 아는 것이 해결책이다.
43. 아는 것이 황금 보화다.

44. 주는 안다.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는지 알고,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45. 사망 세계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46. 모르면 억울하게 당한다.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47. 아는 자는 많이 행하여 잘 산다.

48. 모르는 자는 몰라서 망하고, 아는 자는 알고 행하여 잘 산다.

49. 과거에 몰라서 해를 보고 고통을 받은 것이다.

50. 성자와 주께 매달리고, 힘쓰고, 구하고, 찾고, 성자를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된다.

51. 알기 위해 노력해라! 기도해라! 매일 배워라!

52. 가장 큰 것을 알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 어떤 뜻을 펴시는지, 그것을 알고 행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로 큰 것이다.

53. 그 면에서 알고 행하는 자가 그 면의 선구자요, 개척자요, 왕이요, 구원자다.

54. 주는 아신다.

55. 모르는 것도 쪼개면 알게 된다.

56. 쪼개 놓으면,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

57. 둘이 입을 맞추면, 누가 한 일인지 모른다.

58. 쪼개서 물어보면, 안다.

59. 말을 더하면 모른다. 그때, 더한 것과 본래 말한 것의 내용이 다른지 보면 안다.

60.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사랑의 문화’로 알고, ‘예술 문화’로 알고 살았다. 또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는 삶’으로 알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였다. 고로 심판받고 멸망했다.

61. 같은 것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행한 것’과 ‘인간끼리 행한 것’은 다르다. 고로 같은 것을 행했어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행한 것’은 죄가 아니고, ‘인간끼리 행한 것’은 죄다.

62. 같은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한 일은 죄다.

63.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하면, 모두 의다. 공의다. 선이다. 축복이다. 사랑이다. 구원이다.

64. 모르는 자는 자기가 아는 만큼만 아는 고로, 누가 더 잘해서 잘됐는지 아예 모른다.

65. 뇌는 눈과 같다. 눈은 본 만큼만 본다. 모르는 자는 아예 못 봐서 모르듯, 뇌에 입력이 안 되어 있으니 전혀 모른다.
66. 잠자는 자는 모른다. 이와 같이 뇌가 무지의 잠을 자면, 봐도 모른다.
67. 성자는 알려 줘도 성자의 뜻대로 하는 만큼만 가르쳐 주신다.
68. 가령 성자와 100m 떨어져 있다 하자. 성자 편으로 1m 가까이 오면 1m 온 만큼만 가르쳐 주고, 10m 가까이 오면 10m 온 만큼 가르쳐 준다. 성자께 가까이 오는 만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얻게 하신다. 가령 성자에게 50m 가까이 오다가 변질되면, 온 만큼만 수고대로 얻게 하고 거기서 끝나게 하신다. 사랑도, 돈도, 보물도 일단 줘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떠나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자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69. 성자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든 만큼만 얻게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에 해당되는 영계와 육계에 처해 살게 하신다.
70. 성자는 그때마다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을 쓰신다.
71. 세상에 몰라서 못 한 것같이 억울한 것도 없다.
72. 삼위일체는 세상만사를 다 아시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정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73. 온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 주면, 온전하지 않은 만큼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고로 온전하지 않은 자에게는 알려 주지 말아라.
74. 모르는 만큼 고통을 받는다.
75. 너에게만 알려 준 것은 너만 알고 행해라. 내가 알고 행함으로 너만 받을 축복이다.
76. 아는 것이 열쇠다. 열쇠를 남에게 맡기지 말아라.
77. '뇌'에서 미치도록 좋게 만들고,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78. 하나님은 '사람의 각 지체'를 제각기 모두 다 신비하고 멋있게 만드셨다. 그것을 느끼고 알도록 '뇌'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79. 뇌가 무지하면, 자기 각 지체를 보고도 신비한지 모른다. 마치 소경이 보는 것과 같아서 눈으로 봐도 모른다.
80. 어떤 사람이나 지체를 두고서 성자가 계시하실 때는 사람의 '뇌'를 조종하여 그것이 돋보이게 하시며, 때에 따라 변형시켜서 그때마다 원하는 대로 보여 주신다. '뇌'를 조종하시고, '눈과 귀와 말'을 조종하시며 근본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81. 성자는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어둡게 보이기도 하시고, 훤히 보이기도 하시며, 그 마음의 상태를 순간 보여 주신다.
82. 의로운 자, 선한 자, 뜻있는 자는 환하게, 예쁘게, 마음 끌리게 보여 주신다.
83. 성자께 어떤 사람이 보고 싶다고 간구하니 그 사람을 보여 주셨는데, 순간 그 얼굴이 훗측하고 어둡게 보이고, 얼굴의 형태가 바뀌어 햇볕에 그을려 보였다. 그래서 즉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성애 빠져서 바쁘게 살고 있었

다. 본인이 말을 안 하니, 성자가 보여 주신 것이다. 회개하게 했으나, 결국 자기 죄를 숨기고 죄를 경히 여기며 계속 행하다가 사망길로 갔다.

84. 꿈에 내 혼이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농사를 짓고 쌓아 놓은 쌀을 파먹는 쥐로 보여 주셨다.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를 보여 주신 것이다.

85. 뇌는 자동으로 움직인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동적으로 몸으로 작동한다.

86. 인간의 뇌는 보화 덩이다.

87.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알려고 수고하며 매일 찾아라! 그때에 모르고 때 지나서 알면 억울하다.

88. 모르는 것같이 억울한 것은 없다.

89. 알면 했다. 몰라서 못 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백지장 차이다. 몰라서 못 했으니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90. 배워라. 알도록 연구해라. 노력해라. 성자에게 간구해라.

91. ‘성자는 아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다.’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가 알아서 알도록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성자에게 간구해야 된다.

92. 네가 원하는 것은 네가 필요한 것이니, 네가 해야 된다.

93. 사탄은 모르는 자를 꾀고 이용한다.

<2013년 9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커도 개발해 놓지 않으면, 기능이 약하여 큰 만큼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2. 마음이 커도 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쁨을 겪어도 자기 마음 그릇 만큼밖에 흥분되지 않고, 고로 마음이 푸짐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겪어도 생명력 있게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큰 만큼 뇌를 개발하여 기능 발휘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3. 보석이 큰 만큼 가공해야 빛이 난다. 사람도 큰 만큼 기능을 하도록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4. 사명이 큰 자도 영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조금밖에 못 느낀다. 큰 만큼 개발이다.

5. 영적으로 개발한 만큼 영적인 기능을 해야 자기도 영적 역사를 잘 느끼고, 상대방에게도 영적 역사를 잘 느끼게 해 준다.

6. ‘육체’로 흥분하려 하지 말고, ‘뇌’로 흥분하며 느껴라. 육체의 흥분은 짧다. 뇌의 흥분은 길다. 기도할 때도 ‘뇌’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쁘고 즐겁다.

7. 음식도 먹으면 속에서 발효가 되어 흥분을 느낀다. 그러나 술을 먹는 자는 꼭 술을 먹고 취해야 흥분하고 좋아한다. 술에 맛을 들어서 그렇다. 몸은 길들이는 대로 체질이 된다.

8. 원시인들은 날고기에 맛을 들어서 그것을 먹어야 맛있다고 한다. 불고기에 맛을 들이면, 그것이 맛있으니 다 구워 먹는다.

9. 사람이 커도 개발되지 않으면, 기쁨을 겪어도 못 느낀다. ‘뇌 발육, 마음 발육’, ‘뇌 개발, 마음 개발’이 돼야 한다.
10. 존재물은 기능의 능력이다.
11. 구시대는 마치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기능이 마비되어 새 시대를 못 느낀다. 늙어서 세포가 죽었기 때문이다.
12. 새 시대는 세월이 가도 새것이다. 고로 기능을 발휘하고, 시대를 느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흥분되어 산다.
13. 젊은이들은 느끼는데, 어른들은 크기는 다 컸는데 늙어서 잘 못 느낀다. 고로 웃을 일인데 찡그리고, 흥분할 일인데 울분을 느낀다. 시대도 그러하다.
14. 크기만 하면 뭐하냐? 기능을 발휘해야 기쁘다.
15. 네 뇌와 마음을 발육시키고 개발해라. 자꾸 성자의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며 성자와 대화하고, 자꾸 행하고, 자꾸 뇌를 좋은 쪽으로 자극을 주어라. 그래야 제 기능을 한다.
16.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사는 자는... 다 컸어도 성령의 역사 때도 성령을 잘 못 받고, 말씀을 해 줄 때도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잘 못 느낀다. 새로 온 자들은 잘 느낀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고 몸이 굳어서 잘 못 느낀다.
17. 선생도 계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뇌가 굳어서 못 느낀다. 뇌가 굳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뇌를 자극하고 개발하면, 나이 70~80세가 돼도 정신은 안 늙는다.
18.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먼저 전초로 굳은 뇌를 풀어 주어라. 전초로 상대의 마음이 흥분되었을 때 그때, 말씀을 1차, 2차, 3차로 서서히 넣어 주어라.
19. 뇌를 개발시키지 않으니, 뇌가 굳어 버린다.
20. 먼저 전초로 상대의 굳은 뇌를 풀어 주고 마음을 열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21. 기도도 끝이 좋아야 된다. 설교도, 강의도 끝이 좋아야 된다. 끝 처리가 중요하다. 만사의 모든 일이 끝 처리가 갈끔해야 된다.
22. 글을 쓸 때, 설교를 할 때 ‘핵심 한 단어’를 더 넣는 것이 그리도 크다. 편지 쓸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러하다.
23. 모두 똑같이 사랑해 주고 말씀해 주고 도와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즉시 깨닫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30년이 지나고 자기 때가 지난 후에 깨닫고 한탄한다.
24. 성자가 땅에 보낸 자 한 사람만 존재하면, 성자는 모든 사랑을 다 풀고, 모든 한을 다 풀고, 모든 역사를 다 펴 나간다. / 분체 앞에 그 욕이 되어 뛰는 자도 그러하다.
25. 힘들고 고생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깊은 잠언)
26.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할 수 없으면, 큰일이다. (깊은 잠언)
27. 힘들고 고생돼도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설교도 쓸 수 있고, 편지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28. 고생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며 행복이다.

29. 좋아도 할 수 없다면, 불행이다.

<2013년 9월 27일 자체 금요 기도회>

1. 조건, 대가 역사다.

2. 하나님은 신앙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늘과 땅의 조건을 주셨다. 그 조건을 지켜야 육과 영의 축복과 이상세계를 누리게 약속하셨다.

3.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성 사랑을 하고 조건을 박탈당하고 심판을 받았다.

4. 하나님은 절대 이성 사랑과 세상 사랑을 하지 말라고 '조건'을 주셨다. <사랑>을 자기에게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쓰라고 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랑>을 먼저 자기에게 썼다. 고로 육도 영도 망했다.

5. 조건을 지키는 것이 생명길이다. 영생길이다.

6. 신부 역사 휴거 때인 이때도 하늘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우고 이성의 타락을 하지 말아야 된다.

7. 조건을 지킨 자만 대가를 받으니, 대가가 무엇인지 안다. 조건을 안 지킨 자는 대가를 못 받으니, 대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8. 성경에 "다시 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일찍 죽어서 할 일을 못 했으니 신약 역사를 이루려 다시 온다는 말이 아니다. 신약 역사는 2000년으로 끝났다. 다시 온다는 말은 '성자가 성약 휴거 역사를 펴려 다시 오겠다.'라는 말이다. 어제 못 한 일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 할 일을 하려 다시 온다.

9.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늘 흰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게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잘못된 생각이다. 고로 10000년을 기다려도 그같이는 안 오신다. 신약 때 전능하신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듯이, 성약 때도 전능하신 성자가 시대에 합당한 자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구원역사, 휴거 역사를 펴 나가신다.

10. 예수님이 온다고 했던 2000년도는 이미 지나갔다. 그날 온다는 자가 안 왔으면, 끝난 것이다.

11. 예수님이 하늘의 흰 구름을 타고 눈에 보이게 올 것으로 알고 기다리는 자들은 모래에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자와 같다.

12. 육신이 산 채로 휴거된다고 믿는 자들은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다.

13. 성경에 "영생한다."라고 말하니, 육신이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다. 육신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꼭 죽는데도 그런 비진리를 믿고 산다. 비진리로는 영생도 구원도 못 얻는다.

14. 예수가 재림한다고 했던 1999~2000년도는 지나갔다. 가령 누가 어떤 날을 정해 놓고 그날 온다고 했는데 안 왔으면, 끝난 것이다.

15. 끝까지 가야 한다. 끝에 가서야 근본을 말한다.

16. 성자는 섭리사가 독립하고 끝에 와서야 '성자와 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휴거의 근본'을 말씀해 주셨다.

17. 건물도, 어떤 공사도 끝에 가서야 형체가 완전히 형성되어 드러난다. 섭리역사도 그러했다.

18. 섭리역사 과정 중에 따르다가 나간 자들은 마치 태 속에서 생명이 크다가 유산된 것과 같다. 본인이 유산시킨 것이다.
19.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왔어도 자기가 책임을 해야 한다. 자기가 책임을 안 하면 나간다.
20. <말씀을 듣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21. 말씀으로 구원받으니, 처음 온 사람들을 완전하게 가르쳐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게 하여 자기가 살던 사망에서 나오게 해 주어라.
22. 전도자가 생명을 데려왔어도 가르치는 자가 그 생명의 운명을 책임지고 잘 가르쳐야 된다.
23. 말씀 시간에 '조건'이 있다. 첫째, 잘 전하기. 둘째, 잘 듣기. 셋째, 잘 행하기다. 이는 절대 조건이다.
24. 잘하는 것이 조건이다.
25. 조건을 행하는 자는 어디 있어도 그 환경에서 조건을 행하기다!
26.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더 차원을 높여야 더 차원 높고 새로운 축복이 와도 그 축복을 감당하고 받게 된다.
27. 더 깊이 판 샘물이 더 깨끗하고, 물이 더 많이 솟는다. 기도도 말씀도 그러하다.
28. 조건은 작지만, 행하면 큰 것을 얻게 된다.
29. 조건은 작지만, 행하기가 어렵다. 결단하고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
30. 조건을 지켜야 대가를 주신다.
31. 조건은 하나의 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32. 조건을 세웠다는 것은 할 일을 하고 책임을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대가가 온다.
33. 산토끼를 잡으려 울무를 놓는 것은 자기가 세울 조건이다. 그 후에 산토끼가 울무에 얹히는 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다. 울무가 할 일이고, 토끼가 할 일이다.
34. 조건을 세우지 않는 자는 울무를 놓지 않고서 매일 산에 돌아다니면서 토끼가 얹히기를 바라는 자와 같다.
35. 성자도 분체도 누구에게든지 과거에 '조건'을 주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에 대가를 못 받았다. 자기가 무엇을 행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을 행해야 준다. 땅을 파야 물이 나온다.
36. 조건을 지킨 자만 대가를 받고,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 시대 누구든지 그러하다.
37. 큰 사명자가 조건을 세울수록 큰 조건을 세워 큰 것을 얻는다.
3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조건' 없이 주신 것은 없다.
39. 조건은 물건을 사는 데 있어 돈과 같다. 실상 조건은 물건 값이다.

40. '조건'은 여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지만 '기도'는 항상 기본으로 빠지지 않는다.
41. 사람이 마음으로 원해도 얻지 못하는 원인은 뇌가 굳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2. 굳은 뇌를 풀고 생각하면, 알기에 행하여 바로 얻는다.
43.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여 얻는다. 뇌가 굳어서 모르니 마음만 애탄다. 뇌 속에 각종 보화가 묻혀 있다. 알면, 행하여 얻는다.
44. 모르는 것같이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없다.
45. 원해도 모르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고생한다.
46. 알면, 능히 가볍게 행하여 얻는다.
47. 주의 조건이 무엇인지, 먼저 뇌에서 알아라. 모르면, 주께 묻는 것도 조건이다.
48. 인간의 핵은 '뇌'다. '마음'은 뇌의 결과체다.
49. 뇌가 발달된 차원으로 생각한다.
50. '뇌 발달'은 '마음·정신·생각 발달'이다.
51. 뇌의 3억만 개 세포 중에서 1000만 개만 활동하고 나머지는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생각을 1억만 개 차원만큼 할 수 없는 것이다.
52. 새 차라면, 운전자가 그 차원만큼 운전하여 달릴 수 있다. 그러나 고장 난 차라면, 운전자의 마음이 날아도 실제로 운전할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다.
53. 뇌는 차와 같다. '차'는 고치는 대로, 성능이 좋은 대로 사용한다. '뇌'도 고치는 대로, 성능을 차원 높게 하는 대로 사용하여 생각의 차원과 행동의 차원이 높아진다. 모두 조건이다. 조건을 행해라.
54. 성자도 주도 축복을 줄 자에게 '조건'을 준다. 조건이 축복의 열쇠다.
55. 요셉은 이집트 바로 왕의 꿈을 푸는 작은 조건을 행했다. 약속한 조건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56. 야곱은 팔죽 한 그릇의 조건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평생 잘됐다.
57. 100% 성자 사랑의 조건으로 휴거된다.
58. 분체와 일체 되는 작은 조건으로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함으로 휴거되어 황금 보석 신부성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59. 이성 사랑에 걸리지 않는 조건을 세우기다.
60. 행해도 안 되는 원인은 조건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만 행하기 때문이다.
61. 기도하면, 잊어버렸던 조건의 내용이 생각난다.

62. 조건은 답이다. 핵이다.

63. 핵을 얻으면, 전체를 다 얻는다. 월명동의 핵인 집터를 잡고 있으니, 결국 그 주변의 땅들도 다 사게 되었다.

64. 조건을 세워서 섭리세계를 얻은 것이다.

65. 이단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건을 만들어 행하면서 “조건을 세웠다.” 한다. 그 결과와 답과 대가는 ‘멸망과 사망’이다.

66. 조건을 세우고 대가를 얻었으면, 자기만 알 것은 자기만 알고 행해야 된다. 저마다 조건 후에 대가다.

67. 성자가 조건을 주면, 왜 그 조건을 지켜야 되는지 묻지 말고 행해라. 행하면, 조건 속에 답이 들어 있다.

68. 십일조 조건뿐 아니라 각종 감사 조건, 기도 조건, 참는 조건, 혀 조심 조건, 말조심 조건, 희생 조건, 화목 조건, 성자와 대화 조건, 주와 소통 조건, 관리 조건, 전도 조건, 강의와 가르치는 조건, 증거 조건, 회개 조건 등 그때마다 조건을 합당하게 행하면, 대가가 온다.

69. <회개 조건>, <사랑 조건>은 휴거되는 데 있어서 절대 조건이다!

70. 배우기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71. 실천자만 얻는다.

72. 실천이 답이다.

73. 시간의 칼자루를 잡는 조건을 매일 세워라. (아멘!)

74. ‘조건’이 상천하지의 얼마나 큰 하나님의 법인지 깨달아라. (아멘!)

75. 자기뿐 아니라 가정·민족·세계·섭리사·교회를 위해 조건을 세워야 된다.

76.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 주시겠느냐. 조건을 행하면서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77.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데도 조건이 있다. 조건을 세운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조건이다.

78. 아는 것이 조건이다. 성자가 누구인지, 분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삼위일체가 그를 쓰고 행하신다.

79. 알고 행한 자만 그 자리와 위치를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간다. 모르는 자들만 남아서 끼리끼리 어울린다.

80. 조건을 세우려 하면, 사탄이 막는다. 아직 그 주관권을 못 떠났기 때문이다. 조건을 다 세우면 그 주관권을 떠나니 사탄은 차원이 낮아서 조건을 못 붙이고 더 이상 못 따라온다.

81. 조건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하는 자가 같이 세워야 될 것도 있다. 한쪽은 조건을 세웠는데 한쪽은 조건을 못 세우면 안 된다.

82. 하늘 편의 성자도 구원자도 조건을 세웠으니, 이제 구원받고 휴거될 자들만 조건을 세우면 된다. * 고로 9월 2일부터 <70일 조건의 기도>를 하고 있다. 이때 꼭 하자. 우리만, 너만 하면 된다.

83. 뇌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대 자기 비밀’이다. 뇌 체질을 변화시키면, 바로 비행하여 날아다닌다.
84. 악평자, 비방자, 사망에 갇혀 사는 자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 조건을 잡혀서 휴거 길을 못 간다.
85. 악평자, 비방자, 불신자는 운명을 달리한 자다.
86.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서 끝난다.
87. 어떤 사람은 섭리사에 와서 “나는 별것도 안 했는데 왜 잘해 주지?” 하고 의심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나가기도 한다. 다른 사람이 못 세운 작은 조건을 세워서 그 대가로 받은 것이다. 이것을 몰랐다.
88. 조건은 ‘핵’이다. ‘핵’만 잡으면 ‘전체’를 다 움직인다.
89. ‘조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책임’이다.
90. 조건을 세웠다는 것은 책임을 했다는 것이다.
91. 자기 책임을 한 것이 그리도 크다.
92. 인류를 위해 대신 책임을 하면, 전체 모두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93. 교회·가정·민족·섭리에서 책임을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를 쓰신다.
94. 조건이 얼마나 필요한지 비유를 들면, 난자에게 정자가 필요한 것같이 필요하다. 난자에게 정자가 없으면 생명체가 형성되지 않듯이, 조건이 없으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95. <믿음의 조건>, <행실의 조건>은 절대적이다.
96. 성자와 분체를 100% 믿고 절대 사랑하는 것은 절대 조건이다.
97. 저마다 증거해라. 증거하는 만큼 차원이 높아지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성자와 분체를 증거해라.
98.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하는 자의 책임이고, 행하는 것은 구원받을 자의 책임이다. 절대 조건이다.

<2013년 9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30. 핵인 뇌를 발육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
31. 사람이 뇌를 발육시켜 뇌 기능이 강화되면, 몸 전체가 느끼고 깨닫는다. 이와 같이 핵심자가 기능을 잘하면, 따르는 자들 전체가 잘 느끼고 잘 깨닫고 기뻐하고 흥분되어 뛰며 사명을 다한다.
32. 월명동 핵심지를 개발하니, 그 핵심을 통해서 전체를 느낀다. 핵심지를 개발하니, 마치 몸에 혈관이 통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듯이, 핵심지를 중심으로 산길이 닦였다.
33. 핵인 뇌의 기능을 발달시켜야 온몸의 지체도 발달되고, 잘 느끼고 잘 행하게 된다.
34. <인간의 핵>은 육에 속한 것은 ‘마음·정신·생각’이다. 마음·정신·생각의 근본은 ‘뇌’다. 뇌의 근본은 ‘혼’이다. 혼의 근본은 ‘영’이다. 영으로 사는 육과 함께 만사의 모든 맛을 느끼고 기뻐하며 산다.

35. 영으로 살아야 영원한 것과 깊은 것을 느끼고 산다.
36. 욕으로 사는 자는 욕만 일시적으로 느끼고 산다.
37. 욕은 아무리 발달시키고 기능을 강화시켜 행하며 살아도 역시 땅을 먼치 못한다.
38. 핵심인 뇌, 마음·정신·생각, 혼, 영을 개발시키고 행하며 살아야 ‘욕’도 그 차원 급으로 느끼고 허무하지 않게 살게 된다.
39. 영과 욕을 개발하여 절대 전능자 성자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야 영원한 것을 얻고 살게 된다.
40. 존재물을 덮고 가리면, 저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된다.
41. 시도 사연을 덮고 비유로 가리면, 읽는 자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한다.
42. 핵은 가려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은은하게 생각한다.
43. 핵을 보여 주면, 그 생긴 대로 한 가지만 생각한다.
44. 가령 얼굴은 보여 주고 몸은 가리면, 저마다 그 몸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상상하고 생각한다.
45. 가령 몸은 다 보여 주고 얼굴은 가리면, 저마다 그 얼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상상하고 생각한다.
46. 성자도 성령님도 가리고 안 보여 주니,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이 그 형상을 70억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47.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야 그 존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 수 있다.
48. 핵을 보여 주면, 그 한 가지만 알고 끝난다. 더 다양하게 생각할 것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고 말게 된다. 고로 핵은 보여 주지 말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
49. 사진을 보아라. 정면에서 찍은 것과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앞의 다리와 뒤의 다리의 크기가 차이 나게 보인다. 그 차이는 20~30cm다. 성자 앞에도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자가 그리도 더 크게 보인다. 성자를 가까이하기 다!
50. 뒤에 있는 빌딩이 앞에 있는 양옥집에 가려서 안 보인다.
51. 큰 사람이라도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작은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
52. 성자와 가까이하여라. 성자와 가까이한 자가 큰 자가 된다.
53. 자기 사명지를 떠나면 할 것이 없다. 고로 자기 사명지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54. 단상에서 내려와 사명이 없으면, 관리직을 해야 된다. 단상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55. 하(下)는 상(上)이 될 수 없다.
56. <그림> 하(下)는 ‘욕’이다. 상(上)은 뇌다. 혼이다. 영이다.

57. 불이 달는 데만 뜨거운 것이 아니다. 그 주위까지 전체가 뜨겁게 끓는다.

58.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영적·혼적 차원에서 성자와 교통하면서, 핵인 뇌와 마음이 굳어 둔감해진 것을 풀어, 육의 세계의 것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영에 속한 것들을 잘 깨닫도록 뇌를 개발하고 발육시켜서 영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도록 해 줘야 될 때다.

59. 자기가 둔하니 사랑을 해 줘도 못 느끼고, 말씀을 해 줘도 못 느낀다. 자기가 '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하지 않았기에 못 느끼는 것이다. / 소경이요, 우둔한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요, 자기를 중심하는 자다.

60. 말씀만 애타게 전하지 말아라. 핵인 '뇌'가 굳어 있으니, 먼저는 핵이 살아나 기능을 하게 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61. 핵인 뇌가 병들어서 말씀을 못 먹으니 말씀을 들어도 못 느끼는 것이다. 고로 먼저는 병을 고쳐서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해 주기다.

<2013년 9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선택>도 자유의지이고, <행하는 것>도 자유의지다.

2.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택하여 행하기다.

3. 자유의지는 '뇌'에서 발생하니, 뇌가 굳어 버리게 해 놓으면 '선(善)과 성자 사랑'을 선택해도 잘 행해지지 않는다.

4.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은 하나님이 명하여 억지로 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기가 좋아서 하고 싶어서 스스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5.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은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시키거나 명령해서 하면 언젠가는 안 지키게 되고,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된다.

6. <사랑>도 스스로 좋아서 하는 사랑이라야 사랑의 기쁨이 오고, 살아 있는 사랑이 된다.

7. 저마다 자유의지로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의지로 살아야 된다. 그 법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면 그것이 모두 죄가 되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8. 하나님은 '자유의지'도 주시고, '법'도 주셨다.

9. 하나님의 법 안의 자유의지다.

10. 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행하여 망하거나 사고가 나게 된다. 고로 잘 배우고 자신을 만들어서 바로 알고 행해야 된다.

11.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12. 감옥에 가두어도 각 개인에게 주는 자유가 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13.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제 맘대로 살다가 망한다.

14.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도 받고, 사랑도 하고, 성공도 하고, 휴거도 되어 천국에 가야 된

다.

15. 자유의지를 귀히 여겨라!

16. 선택의 자유다. 행함의 자유다. 사랑의 자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속적인 삶이라야 '자유'로 성공한다.

17. 영원한 자유의지다.

18. 자유의지를 놀리지 말아라.

19. 자유를 녹슬게 하는 자도 있다.

20. 죄를 회개하여 자유를 얻어라!

21. 자기 자유를 잘못 쓰면, 자기가 자기를 묶어 매여 구속받게 한다.

22. 좋은 것을 선택하고 행하여 자유로운 자가 되어라.

23. 천국은 무한한 자유의 세계다. 이미 모든 영들이 신적 차원으로 변화된 영들이기에 범죄 할 마음도 아예 없어 범죄 하지도 않고 사랑과 기쁨 속에 자유롭게 산다.

24. 천국은 영을 완전히 만들어서 가는 세계다. 고로 천국에서는 '사랑과 선(善)'만 존재한다.

25. 사랑의 자유의지를 100% 성자께 써라.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자유의지를 100% 성자께 써야 자기 길로 가지 않는다.

26. 100% 행하는 자만 오직 그 길로 가서 성공한다.

27. 성자께 사랑을 99% 쓰고 1%는 다른 데로 쓰면, 마치 '사랑'이 문 없는 집같이 보이고, 눈 한쪽이 없는 얼굴같이 보인다.

28. 영이 천국의 형체로 변화되려면, 욕이 100% 온전히 행해야 된다.

29. 자유의지가 좋으나, 인생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편하게만 살아간다. 그러니 결국 약해지고 게을러져서 영적 빈곤에 처해 살게 된다.

30.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한하게 열심히 행해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공해야 된다.

31. 편하게만 사는 사람치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

32.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자기가 자기를 소경으로 만들고, 불구의 뇌와 정신과 몸으로 만든다.

33. 감옥에서 제재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자유의지다. 놀든지, 자든지, 놀든지 자유의지다.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자유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34. 자유의지 때문에 자살도 한다. 고로 지구 세상을 보면, 하루에 도시 하나씩 정도의 생명들이 자살하여 사라진다.

35. 죽음의 자유가 없다면, 못 죽을 것이다. 자유의지가 있으니 자살도 하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자기 인생이 망한다.

36. 음식을 짜고 맵게 먹는 것,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자유의지다. 그러나 그로 인해 건강이 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결과다.

37. 자유의지를 좋은 것에만 써라!

38. 자유의지를 나쁜 것에 쓰면, 누가 잡아다 고통을 안 줘도 스스로 망하고, 스스로 깊은 함정으로 내려가서 죽음으로 가게 된다.

39. 자유의지는 ‘칼’과 같다. 잘 쓰면 좋고, 잘못 쓰면 자기가 자기 손을 베게 하고 끊게 한다.

40. 자기 자유의지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뜻대로 사는 자유의지를 택하고 살면, 구속(救贖)받아 죄에서 육도 영도 자유롭게 된다.

41. <자유의지>는 실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이다. 좋은 것을 선택하여 잘 쓰면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하여 잘못 쓰면 해를 당한다.

42. 과거와 현재에 겪은 것을 깨닫고 제대로 판단하여 현재에서 온전히 행하여 좋은 미래를 얻어라!

<2013년 10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창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자도 절대 필요하고, 창을 던져 사냥할 것을 잡는 자도 절대 필요하고, 잡은 것을 가지고 오는 자도 절대 필요하다. / 이같이 하나 되어 세 겹 줄이 되어서 하듯, 섭리사의 모든 일도 이같이 하여라.

2. 씨를 뿌리는 자, 가꾸는 자, 추수하는 자 모두 한 주인이 사랑하는 자들이다. 일을 하는 기쁨도 하는 일마다 각각 다르다. 그러나 같이 먹고 즐기니, 화평으로 희망으로 하나 되어 하여라.

3. 육계에서 보면 영계의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된다.

4. 믿는 자가 보면 안 믿는 자가 이해가 안 되고, 안 믿는 자가 보면 믿는 자가 이해가 안 된다.

5. 행한 자가 보면 행하지 않은 자가 이해가 안 되고, 행하지 않은 자가 보면 행한 자가 이해가 안 된다.

6. 서로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7.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서로 봐도 이해가 안 된다.

8. 자기 자신도 행하기 전에는 할 일이 이해가 안 된다. 행해야 이해가 된다.

9.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면, 서로 이해가 안 된다.

10.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을 행해 봐야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

11. 성자의 일도 주의 일도 행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

12. 의심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하지 않으니,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13. 새벽에 기도하라는 것도 행한 자만이 이해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새벽에 왜 기도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14. 왜 전도를 하라고 하는지, 행한 자만 이해한다.

15. 욕이 행할 것을 행하지 않아서 그 영이 지옥에 갔으니, 왜 자기가 지옥에 갔는지 모른다. 행했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는지 안다. 지옥에 간 자는 모르고, 천국에 간 자는 안다.

16. 욕이 땅에서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땅에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기에 그 영이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갔다. 천국에 가서 보니, “지옥에 간 자는 이것을 못 해서 지옥에 갔구나.” 안다.

17. 같이 하는 자만 ‘심정’도, ‘사연’도 안다.

18. 전능자 삼위일체는 공의로우시다.

19. 만물의 이치는 공의롭다.

20. 밥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 안 먹으면 누구나 배고프다.

21. 운동도 할 때만 표가 난다.

22. 사람의 몸은 금덩어리같이 만들어 고정시키지 못한다. 금덩어리는 만들어 놓으면, 1000년 동안 그대로 있다. 그러나 사람은 행할 때만 존재한다. 음식을 먹을 때만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다. 음식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1년, 10년 동안 금덩어리같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23.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고 행하는 것도 열심히 할 때만 표가 난다. 하루만 안 해도 표가 나게 지장이 있다.

24. 천국은 육체 물질 세계가 아니다. 변화무쌍한 세계가 아니다.

25. 천국과 영혼은 육체같이 물질이 아니다. 매일 음식 먹듯 해야 존재하고, 한 번 쓰면 끝나는 소모품 같은 고달픈 세계가 아니다.

26. 물질 세계는 소모품 세계다. 기도도 음식 먹듯 매일 해야 그 영향을 받고 매일 존재한다.

27. 어제 기도한 것으로 어제 존재한 것이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 밥을 먹었어도 오늘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 표가 나고, 어제 씻었어도 오늘 안 씻으면 껍껍하듯 표가 난다.

28.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자는 그 면에서 죽어 있는 자다. <그림> 기도 안 하는 자 그려 넣고 → (화살표 하고) 죽은 자의 모습 기도하는 자 그려 넣고 → (화살표 하고) 살아서 뛰는 자의 모습

29.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면에서 죽어 있는 자다.

30. 말씀을 안 듣고 사는 자는 그 면에서 죽어 있는 자다.

31. 죽어 있는 자는 마치 30년을 살았어도 10세에서 성장이 멈춘 불구자같이 10세 수준으로 행한다. 고로 옆에서 이상세계가 일어나도 모르고 산다. 고로 성장한 자가 보면 바로 안다. 성장하여 아는 자가 말해 주면, 이해를 못 하고 화를 내며 심정 거슬린다고 한다.

32. 성장이 멈춘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그 면에서 지체 불구자같이 보인다.

33. 운동을 안 한 자를 보면 약한 것이 보이듯, 행하지 않는 자들도 영적으로 약한 것이 보인다.

34. 몸 관리를 안 한 자는 표가 나 보인다. 할 일이 없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서성거리니 표가 난다.
35. 꼭 기도해라!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꼭 전도해라!
36. 꼭 깊은 기도를 하여라! 이유는 묻지 말아라.
37. 할 일을 행하고 얻은 자는 천국같이 산다.
38. 행한 자는 얻고 누리면서 산다. 행하지 않은 자는 얻지도 못할 뿐더러 봐도 못 누린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얻고 누리나?” 생각한다.
39.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을 이해한다.
40. 성령께 속한 자만 성령님을 이해한다.
41. 성자께 속한 자만 성자를 알고 깨닫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보람차게 살아간다.
42.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냈어도 구원자에게 속한 자만 바로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 시대 구원을 받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휴거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2013년 10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강의용

1. 양달에 있을 때 생각이 다르고, 응달에 있을 때 생각이 다르다.
2. 사람은 환경에 처한 대로 생각이 달라진다.
3. 생각이 달라지도록 환경도 다르게 해 주고, 대해 주는 것도 다르게 해 줘야 한다.
4. 중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도록 음식을 대접해 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도록 선물을 사 준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도록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6. 잘 대해 줄수록 상대의 생각은 달라지고, 자신도 상대를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진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도 보내고 선지자도 보내면서 역사하고 이끄시는 것이다.
8. 사람은 생각이 잘못되어 망하게 된다.
9.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10. 생각을 잘하면 잘된다.
11. 의인은 몸부림쳐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 악인들은 호의호식하며 탄짓을 한다. 의인이 이를 알고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도 그들은 탄짓을 하니, 내 기도가 악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 어찌 헛되냐. 내가 다 듣고 행해 왔고, 너의 마음을 내 알고 행하리라.” 하셨다.
12. 의인은 주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다. 그러나 끝 날이 다가온다. 그

때는 다르다.

13. 먹고 취하고 향락을 누리며 차를 타고 절벽 길을 달리니, 그 결과가 100의 하나라도 요행이 있겠느냐.

14. 근신 중에 고통 속에 외롭고 쓸쓸해도 자기 생각을 제대로 운전하면서 절벽 길을 가는 자만 100의 하나라도 절벽으로 구르지 않고 간다. 그 절벽은 사망의 절벽이라서 한 번 굴러 떨어지면 경상이나 중상은 없다. 떨어지면 무조건 다 죽음이다.

15. 의인은 생명길에서 탈선된 영혼들을 위해 주리고 잠 못 자 가며 마치 사랑하는 배필이 죽은 초상집 상주의 심정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어 보면 그 육신들은 자기를 위해 슬퍼하며 탄식해 주는 자를 전혀 생각지 않고 아무 의식 없이 다니면서 먹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 살고 있었다. 이에 의인이 ‘내 기도는 아무 소용없구나.’ 하며 한숨을 쉬고 있으니,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자는 자기 할 일만 다 할 뿐이다. 구원자의 의로 인해 그들이 자기 책임을 하여 돌이키면 구원을 받고, 자기 책임을 못 하면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하셨다.

16.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시대의 구원자는 책임을 다해 인생들에게 구원길을 열어 주나,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멸망받을 수도 없는 운명이다. 삼위일체와 구원자가 책임을 해 줘도 인간의 책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7. 구원자는 구원의 비밀을 안다.

18. 농부는 과일나무에서 하나의 열매라도 더 열게 하기 위해서 땅을 더 깊이 파서 퇴비하고 갖은 수고를 다해 관리한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열매가 50개 열렸든, 100개 열렸든, 열린 열매만 따 간다. 꽃이 피었다가 비바람에 떨어져 열매를 열지 못한 것들은 생각지도 않는다. / 한 나무와 같은 지구 세상의 70억 인생들도 그러하다. 70억 개 다 열매가 자라서 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의 열매도 열리지 않을 수도 없다.

19. 농부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대로 그 열매를 가지고서 역사를 편다.

20. 의인들이 자기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생을 살지만, 그중에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자기 책임을 못 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들도 있다.

21. 육신을 기반으로 하여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향락을 누린 자들이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았다.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참고 견디면서 오직 ‘주’를 위해, ‘자기 영’을 위해 산 자들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지상에서 봐도, 영계에서 봐도 그 차원이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더 높았다.

22. 젊었을 때 자기 때에 세상과 육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와 같이 먹고 마시지 못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으니,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청춘과 함께 이미 인생의 좋은 날은 가 버린 것이다. 이런 자들이 후에 돌아와 회심하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한다. 과거의 지난날은 이미 다 흘러가서 끝났으니, 회심했을 때부터 30대고, 40대고, 50대고, 60대고 그때부터 겨우 주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 후 그 영들이 해 놓은 것을 영계에서 보니, 아무래도 젊었을 때 자기 때부터 주를 위해서 이상 없이 열심히 뛰고 달린 자의 공력을 따라갈 수 없었고, 그들의 집을 따라갈 수 없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 와서 살았어도 열심히 하지 못한 자들 역시,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한 자들과 같은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각자 행한 대로 공력이 쌓이고, 영의 세계에서 육이 행한 대로 실존 세계가 된다.

23.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이다. <결과>는 ‘현실’에도 있고, ‘미래’까지 영원히 있다.

24. 누가 아무리 ‘미래’를 위해 살라고 외치더라도 매일 ‘현실’을 살아가기도 어렵고 바쁘니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을 잘 못 한다. 현실에서 굶으면서 모을 수도 없고, 현실에서 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현실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안 할 수도 없다. 그러면 헐벗고 굶주려서 못 견딘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살고 싶어도 못 한다. 미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된다. 이와 같이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을 누리며, 자기 수고로 인해서 오는 희망의 것들을 지금 당장 받으면서 살기도 바쁘다. 그런데 육이 현실에서 육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복음을 넣어 주면, 거의 못 하겠다고 한다.“내 육신이 세상에서 배고프니 먹어야 되

고, 혈벗으니 입어야 되고, 피곤하니 자야 되고, 또 부지런히 벌어서 얻고 누리야 되는데, 어떻게 영을 위해서 사느냐?” 하면서 거의 안 한다고 한다. 또 “영의 세계가 있는지 내가 봤냐? 행여 가 봤어도 지금 당장 내 육이 수고하여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 때가 지나가면 못 얻으니, 지금 빨리 거기 가 봐야 된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되고, 늙기 전에 사랑도 해야 된다.” 하면서 안 한다고 한다. 고로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이 구름같이 많다.

25.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얻고 누리며 사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꾸준히 도와주고 이끌어 줘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한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말씀을 듣고 이끌려 와서 현실을 위해 살면서, 자기 영과 미래를 위해서 살게 된다. 결국 자신들이 해야 삼위일체도, 구원자도 나타나 도와주고 역사한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많아진다.

26.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육과 현실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미래에 닥쳐 사나 마나 고통이다. 세상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미래인 영계에 가서 사는 것을 보나 마나 그곳은 고통과 사망의 세계다.

27. 오늘과 현실에 배고프고 혈벗고 잠을 못 자도 내일과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조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 있게 되어 내일을 보고 살아간다. 고로 오늘도 이상세계이며, 내일은 더 이상세계다.

28.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향락을 누릴 시간이 없어도, 사랑할 시간이 없어도... 육의 미래인 ‘영’을 위해서 매일 조금씩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현실에도 희망이 있고, 미래에도 희망이 있어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29. 미래가 없는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죽은 인생이다.

30.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하고 육신만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시한부 인생’이다.

31. 세상에서 물질·명예·사랑을 우주만큼 엄청나게 누렸어도, 세상에서 왕을 했어도, 그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았어도 인생이 늙고 때가 지나면, 뇌세포가 죽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다만 어젯밤 꿈에 불과하게 희미하게 생각나 허무함으로 지나칠 뿐이다. 그 모든 것이 ‘자기 영’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고로 미래 영의 세계에서 영이 지난날 자기 육의 삶으로 인해서 연속 고통을 받으며 산다. 육이 세상에서 살 때 한 일을 다 잊어버려서 왜 자기가 그러한 고통을 받는지, 그 의문을 풀지 못한다. 왜 그 영이 연속 고통을 받으며 살까?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생 동안 자기 영을 위해 제대로 살지 못한 대가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대가다. 육이 자기 육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육은 이미 세상에서 죽어 썩어 없어졌다. 육이 행한 것을 생각하면 육을 지옥에 넣어야 되건만, 육은 죽어 썩어 없어지고 영이 사망에 떨어져 연속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 영은 자기 육을 저주한다. 깨닫고 보니, 육은 하나의 기구와 같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그러한 것이다. 고로 자기 영이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저주한다. 알고 보니, 자기 마음·정신·생각은 자기 혼과 영에 합류되어 짓값을 받으러 온 것이다. 고로 자기 영이 자기 육성의 마음·정신·생각과 혼체를 저주한다. “네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먹고 입고 누리고 이성으로 즐기면서 현실만을 위해서 살고, 썩을 육신만을 위해 살았기에 내가 이리되었다.” 하며 자기를 때려 댄다. 결국 자신을 저주하고 때리며 괴로워한다.

32. 지옥사자 사탄 마귀가 이들을 보고서 말한다. “아니, 세상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자기 옆에서 살면서 권유하고 말하고 가르쳐 줄 때 회심하고 제대로 살지, 왜 지옥에 와서 자기를 해하나? 네 영이 지옥에 와서 자기의 무지를 깨달듯이, 네 육이 세상에서 살 때 깨닫고 행했다면, 천국에 가서 전능자와 같이 누리고 살았을 것이다. 네가 네 동료를 보고서 인생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고 비웃었지? 구원자가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고자 관리해주었는데도 이성으로 배신하고, 잘난 척하며 교만하게 대하고 “나 세상으로 나왔어도 잘 살고 있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 했니? 이년아. 이놈아. 배신자들은 마땅히 지옥에 와야 된다.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역사이니, 하나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얼마나 잘해 줬냐. 여기서 영원히 괴로운 고통을 받아라! 너희에게 고통을 주는 만큼 우리 지옥사자들이 지옥에서 사는 낙을 누린다.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역사에서 구원자 옆에서 꿈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자를 배신하고 외면했느냐? 그 후에 얼마든지 회심하고 다시 가서 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구원자가 우리 사탄들에게도 그 같은 기회를 줬다면 다 구원받았을 것이다. 이 사탄만도 못한 자들아! 고로 너희가 지옥에서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모두 저들을 괴롭혀라! 악을 쓰고 괴로워하는 꼴을 보자. 전능자의 속을 썩이고, 성자의 심정을 태우고, 구원자의 가슴에 칼질을 한 죄다. 오늘은 저들을 펄펄 끓는 유황불에 넣고 수영시키는 날이다!”

<2013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해 줄 것도 몰라서 못 해 준다.
2. 해 줄 것도 성자 앞에 구하지 않아서 못 해 준다.
3. 성자는 사람에게 해를 주고 기대에 어긋나게 하는 자를 보면서, 그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행한 대로 갚아 주면 되기 때문이다.
4. 성자는 사랑하는 신부가 시킨 일을 안 하면... 답답해하시고, 자존심이 상하시고, 심정이 상하시고, 다시는 어떤 일도 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왔다가 가 버리시고, 가서 다른 자와 같이 행하시고, 다시 오는 것을 거북스럽게 생각하신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5. 성자는 사명을 준 자를 바늘의 실같이 늘 따라다니신다. 그러나 사명자가 절대 기도하고 성자께 물어야 능력을 주시며 그 몸을 쓰신다.
6.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꺾고 해를 주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그냥 놔둔다.’ 생각한다. 하나님은 때를 정해 놓고, 사탄을 다스리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을 모두 심판하고 멸하신다.
7.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사탄이 생명의 세계에 침범하여 해를 주게 놔두시나? 아예 침범하지 못하게 안 하시나?’ 생각한다.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기, 진드기, 각종 해충과 같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해충을 소독하듯 하면 된다. 그런 후에 때가 되면 계절 심판하듯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진리’를 주었다. ‘그 진리를 지켜 행함으로’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하셨다.
8. 성자의 주관권에 들어와 진리와 사랑으로 성자와 일체 되어 살면, 사탄을 없앨 수 있다.
9. 사탄이 앙심을 먹고 인생들을 계획적으로 해하려 한다. 마치 고기가 물속에서 사람을 물려고 앙심을 먹고 있어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으면 되듯, 사탄도 그리하면 된다.
10. 악과 사탄을 영원히 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깨달아라.
11. 만일 어떤 한계까지만 멸하고 다시 활동하게 한다면, 그 악심을 가지고 또 생명들을 해하지 않겠나. 고로 악과 사탄을 영원히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12.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 주는 자를 못 버리신다.
13. 성자도 성자를 사랑하는 자를 못 버리신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 주지 않는 자는 자동적으로 세상으로 떠내려가게 된다.
15.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붙잡아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16.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형상으로 인간의 각 지체를 만드셨다.
17. 나는 포기했어도, 성자는 나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행하신다.
18. 내가 실수로 책임을 못 하여 포기했어도, 성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하게 하셨다.
19. 아예 포기해 버리고 안 하고 사는 자가 있고, 뛰면서도 포기하고 뛰는 자가 있다.

20. 경주하는 자가 뛰고 있는데도 포기하고 뛴다. 2등은 1등을 포기하고 뛰고, 3등은 2등을 포기하고 뛴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면서도 가능성이 없는 것은 포기하고 산다. 포기해 버리면, 뇌에 시동이 켜져 있어도 안 보이고, 뛰어도 안 뛰어진다.

21. '실패'는 다음에 더 좋게 할 수 있는 연습이다.

22. 실패해도 포기는 하지 말아라. 다음에 그 터전 위에 나머지만 잘하면, 대승리다.

23. 하기는 했는데 100%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그다음에 못 한 것만 해서 100%로 만들면, 그 차원에서 승리한다.

24. 휴거는 성자와 분체와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먼저 <육>이 '땅'에서 같이 살아야, <영>이 '천국'에서도 같이 살게 된다.

25. '진정한 정성'이 없고, '성의'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 성자가 가 봤자 통하지도 못하니, 성자는 멀리서 쳐다보신다.* 명절을 보내면서

26. '환경'만 바꾸면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고, 범사에 '마음'을 바꾸면서 기쁨을 얻어라.

27. 환경이나 눈으로 보는 데서만 기쁨을 얻으려면, 매일 자주 못 얻는다. 고로 '마음'을 바꾸면서 마음에서 기쁨을 얻어라.

28. 마음을 합당한 대로 바꿔 가면서, 마음에서 낙을 찾고 기쁨을 찾고 얻어라.

29. 사람은 색다른 환경에서 색다른 기쁨과 희망을 얻으며 즐거워하려고만 한다. 그러면 매일 자주 기쁠 수 없고 즐길 수 없다. 고로 '마음'을 수시로 바꾸면서, 마음에서 이상과 기쁨을 얻어라.

30. 사람은 뇌와 몸으로 살아간다.

31. 환경은 생각하면서, 뇌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다.

32. 뇌에서 생각하면 생각한 그것이 보이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언제 환경을 만들어서 그곳까지 가느냐.

<2013년 10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편안하려 하는 자는 할 일을 두고도 못 한다.

2. 할 일을 해야 목적을 이루지, 할 일을 안 하고 편안하게만 있으면 영원히 안 된다.

3. 갈 길을 두고 앉아 있으면, 갈 길이 가지냐.

4. 할 일을 두고 편안히 앉아 있는 자는 편안히 묶여 있는 자다.

5. 어떤 자는 할 일을 두고 안 하면서 "편한데 가만히 있지, 왜 하냐?" 한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냐.

6. 할 일을 할 시간에 일을 안 하고, 편하다고 계속 편한 대로 있을 거냐. 그렇게 편한 것은 인생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편안함이다.

7. 할 일을 하면서 존재하는 편안함을 얻어라.
8.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힘드니 그늘 밑에서 시원하니 앉아서 쉬고 있었다. 편안하니 계속 눕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있었다. 누가 묻기를 “갈 길을 가야지, 몇 시간이나 거기서 쉬느냐?” 했다. 이에 “길을 가니 피곤하고 편하지 않다. 가만히 있으니 편한데, 왜 가냐?” 했다. 어리석은 자다.
9. 할 일을 하면서 편안한 자는 흥하는 길을 가고, 할 일은 안 하고 편안한 자는 망하는 길을 간다.
10. 게으른 자는 할 일을 안 하면서 편안하고, 부지런한 자는 할 일을 하면서 편안하다.
11. 영원한 휴거의 할 일을 두고 적당히 하고, 자기 삶을 위한 사명의 할 일만 하면서 “휴거되겠지.” 한다.
12. 휴거되기 위해 할 일이 따로 있고, 자기 육신이 존재하기 위해 할 일이 따로 있다.
13. 휴거되기 위해 할 일은 영적인 일이라서 자기 육신이 존재하기 위해 할 일과는 다르다. 기도해야 된다. 영의 세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전능하신 성자와 일체 되고, 성자의 육과 일체 돼야 한다. 성자와 그 육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마치 결혼한 남녀가 한 몸 되어 살아가듯, 영적인 것을 중시하여 육이 영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14. 육을 통해 마음도 혼도 영도 완벽하게 ‘성자의 신부’로 만들어야 된다.
15. 월명동 사랑의 집을 한 기간 동안 투자하여 만들었듯이, 네 육을 통해 네 마음과 혼과 영을 만들어야 된다.
16. 육적 사명의 일과, 영적 사명의 일을 확실히 구분해라.
17. 육의 삶을 살면서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18. 사람이 모르고 못 한 것같이 억울한 것은 없다.
19. 착각하지 말고, 바로 알고 살아라.
20.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휴거됐겠지.” 하지 말고, 확인하여라.
21. 휴거의 삶은 다르다. 주가 인정해야 된다.
22. 휴거의 삶은 자기가 맡은 사명의 삶과 다르다.
23. 자기 사명의 삶을 살 때는 임무가 다르다. 처지가 다르다. 설교하는 자, 전도하는 자, 행정을 보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등 수백 가지로 다르다. 이 일들은 각자 특성과 재능에 맞게 성자와 주께 사명을 받아서 한다.
24. 휴거는 한 가지 종류다.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곧 성자에게 가기 전에 그 육에게 가서 말씀으로 그와 일체 되고, 시대를 깨닫고, 성자의 육과 먼저 휴거를 이뤄야 된다. 먼저는 육의 사람과 일체다. <육적 육의 휴거>다. 그리고 신령한 자, 성자와 일체 되어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휴거돼야 한다. <영적 영의 휴거>다.
25. 휴거의 삶은 100% 사랑이다. 자기 육을 통해 자기 혼과 영을 100% 온전히 만든 삶이다. 성자와 그 육과 100% 교통하며 사는 삶이다. 이것이 된 자는 휴거된 자다.
26. 계획적으로 수년 동안 월명동 돌 조경을 만들어서 완성했듯이, 자기 휴거도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한동안 행하면서 이뤄야 된다. 그리고 성자가 그 육을 통해 “너의 육도 휴거되고, 영도 휴거됐다.” 하면, 휴거된 것

이다. 그러나 자기가 휴거됐는지 의심되면, 매일 자기가 휴거의 삶을 사는지 자기 행위를 보아라.

27. 휴거의 희망을 가지고 휴거를 생각하는 것이 휴거된 것이 아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면, 기존과는 생활과 정신과 사고와 뇌와 육이 달라지고 변화된다. 이와 같이 휴거되면, 자기 육·혼·영이 성자와 그 육인 분체와 완전히 일체 되어 사는 삶을 살면서, 매일 얻고 누리면서 산다.

28. 연애 단계를 결혼 단계로 착각하고 산다. 휴거 단계를 휴거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꼭 100% 만들어서 휴거되어야라.

29. 결혼하면 결혼한 여인이 자기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듯이, 휴거되면 자기가 휴거됐다는 것을 안다.

30. 집을 짓는 과정 중에 “나 집 지었다.” 하듯이, 휴거를 이루는 과정 중에 미완성 단계에서 “나 휴거됐다.”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31. 목적지에 가고 있으면서 “나 목적지에 왔다.” 하듯이, 휴거를 이루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나 휴거됐다.”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32. 목적지에 갔으면, 얻을 것을 얻는다. 또한 환경과 배경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휴거됐으면,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달라진다.

33. 휴거된 자는 철저히 온전한 삶을 산다.

34. 완성된 차는 거리에서 달린다. 이와 같이 휴거된 자는 육도 혼도 영도 휴거된 주관권에서 산다.

35. 완성되지 못한 차는 거리에 못 나온다.

36. 차가 번호판만 안 붙여도 거리에 나오면, 법규에 걸려서 어떤 곳에서든지 잡아 못 움직이게 한다. 100% 휴거되기 까지 놀지 말고 행하여, <천국의 최고 황금성>에 가기 위해 100선, 200선을 넘어 300선까지 가다. 휴거만큼은 절대 쉬고 늦추면 안 된다.

37. 신랑은 저 여자가 자기의 평생 배필인지, 아닌지 안다. 어떤 여자는 남자가 짝사랑하는 자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도 애인은 아니고 애인 축에 들어가는 정도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는 애인으로 만들고 있는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저 여자는 확실히 내 애인이다 신부다.” 하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이 휴거됐는지는 성자만 아신다. 성자는 자신 있으면,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다. “너만 변치 않으면, 내 애인이다. 내 신부다.” 하신다.

38. 글을 써서 책으로 찍어 내야 책이다. 원고 가제본은 책을 만드는 과정이다. <휴거>도 원고를 쓰는 단계나 가제본 단계에 있는 자들은 빨리 책을 완성하여 찍어 내듯 완성하여라.

<2013년 10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행할 것을 행하면 불가능이 없다. 안 행할 것을 안 행하면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기에 불가능이 없고, 절대 행하지 않음으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2. 안 행할 것을 행하면 불가능하다. 행할 것을 안 행하면 불가능하다.

3. 이성에 속한 것도 행하지 않음으로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나 이성에 속한 것을 행하면 불가능하다.

4. 죄에 속한 것은 아예 안 하가다.

5.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 죄를 안 짓기는 불가능하다.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

6. 인간은 돌덩이나 쇳덩이같이 ‘이성’이나 ‘죄’에 절대 절대적인 자가 아니다. 돌과 쇠는 지구 세상의 남녀들 모두가 이성으로 피고 사랑해도 영원히 이성 죄를 안 짓는다. 인간은 돌과 쇠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항상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 존재로서, 쉽게 죄를 짓는다. 절대자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주의 말을 듣고 죄악에서 나와 죄를 행하지 않아야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은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을 자극하면, 누구나 죄를 짓게 된다. 참고 견딤으로 죄를 안 지을 뿐이다.

7. 인간은 자꾸 죄를 짓는다. 고로 하나님은 ‘용서’라는 씻을 물을 바닷물같이 예비해 놓으셨다. 회개함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8. 하나님과 성자는 몸의 더러운 때를 ‘죄’로 비유하시며 “이같이 더러운 때를 씻어 내듯,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하여라.” 하신다. 정기적으로 씻어 몸의 때를 없애듯,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 오히려 짓값을 받는다. 회개는 축복받는 길이며, 사는 길이다.

9. 죄를 덜 짓고 많이 짓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를 아예 안 짓는 자는 없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나, 그것도 어렵다. 계속 자기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죄 없는 상태가 된다.

10. 혼자 숨어 있으면서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 생명을 전도하지 않고 할 일을 안 한 죄다.

11. 사람이 선에 속해 살면, 사람을 죽이는 죄나 도둑질을 하는 죄는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가벼운 죄들은 생활과 공존한다. 사람이 살아 있는 한, 몸의 때가 안 생기는 사람은 없다. 몸의 때는 두 가지로 생긴다. 첫째, 외부의 먼지가 몸에 붙어서 생기고 / 둘째, 몸에 있는 노폐물이 땀구멍으로 나와서 굳어서 생긴다. 씻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생긴다. 이와 같이 육신이 죽기 전에는 이같이 평생 죄가 생긴다. 자체로 죄를 짓기도 하고, 상대로 인해 죄를 짓기도 한다. 고로 매일 회개하여 죄를 청산하여라.

12. 이 세상 법에 해당되는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많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죄가 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못 하면 죄가 된다. 가만히 있어도 몸에서 노폐물이 나오듯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자체에서 죄를 짓게 된다. 고로 매일 힘써 주 안에서 자기 책임을 하고, 주와 붙어 살아라. 그래야 죄를 안 짓게 된다.

13. 죄를 안 짓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내다가도, 이미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결심하고서도, 또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된다.

14. 자위행위, 음란물을 보는 것, 각종 이성에 관한 것, 동성에 관한 것 등 1년, 2년, 3년 동안 죄를 안 짓다가도 죄를 경히 여기고 신경 쓰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다시 짓게 된다. 장담하지 말아라. 참고 견디었기에 죄를 안 지은 것이다. 긴장 풀면, 또 죄를 짓게 된다. 3년, 7년 동안 이성 죄를 안 지었어도 자기가 돌이나 바위가 된 것이 아니기에 긴장 풀고 참고 견디지 못하면,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다. 계속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면,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계속 참고 견디며 죄를 안 지어야 죄를 안 짓는다.

15. 운전수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무사고였던 것은 그만큼 정신 차리고 운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절대 신이 아니다. 어느 날, 졸음운전을 하면 사고 난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이러하다는 것이다.

16. 계속해서 완전하게 사는 자만이 완전하게 된다.

17. 술 담배를 끊고 20년, 30년, 40년 동안 안 하고 살았다 하자. 그렇다고 해서 평생 절대 술 담배를 안 한다는 보장을 못 한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인이 “한 번만 빨아 봐. 한 모금만 마셔 봐. 맛이 어떤가.” 했을 때 ‘못 참으면’, 또 술 담배를 하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안 해야 죄를 안 짓지, 죄를 오랫동안 안 지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죄를 안 지으면, 오랫동안 술 담배를 안 한 자와 같아서 90~99% 참을 수는 있다. 체질이 변화되면 가능하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 있다!” 하는 자들도 98%, 99% 완전하다. 하지만 안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2%, 1% 있다. 고로 항상 조심하면서,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시인해야 된다.

19. 절대적으로 죄를 안 짓겠다고 하는 날만 죄를 안 짓지, 참고 견디지 못하면 또 죄를 짓는다. 매일 시간마다 수시로 주를 부르며, 정신과 행위와 혼과 영이 매일 죄를 안 짓게 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낙심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가던 길을 가면 된다.

20. 몸의 때를 씻고 나서 조금 있으면, 몸에서 노폐물이 나와서 또 끈적거린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또 씻으면 된다. 생활 속에서 마음의 죄, 게으른 죄를 지으면 꼭 회개해라. 그러면 몸의 때를 씻듯이 죄를 씻게 된다. 고로 죄를 지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회개하고 행하기다. 그러면 계속 완전한 위치로 가게 되어, 나중에는 100분의 1만 신경 써도 죄를 안 지을 만큼 ‘마음’도 ‘몸’도 굳건하게 된다.

<2013년 10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그 이상은 못 본다.

2.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할 일이 없다.

3. 낮은 산에는 겨울에도 눈이 안 오고, 여름에도 시원하지 않다. 이와 같이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생각하는 차원이 낮아서 그 하는 행위가 볼 만한 것이 없다.

4.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성자와 같이 못 산다.

5.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성자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행한다.

6.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땅만 보고 육적으로만 살게 된다.

7. <육적 두뇌>는 아이큐가 110~150이라서 그 정도만 생각하면서 행한다. 그러나 <영적 두뇌>는 아이큐가 150~3000까지 되고, 혹은 7000까지 된다. 고로 그 차원에서 생각하고 보면서 행한다.

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구상과 아이디어’는 인간이 따지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차원이다. 성삼위를 사랑하고 일체 되는 자들의 두뇌에 그 ‘생각과 구상’을 주시며 역사하신다. 고로 성삼위를 사랑하고 일체 됨으로 그 엄청난 ‘생각과 구상과 아이디어’를 받아 행하여라.

9. 인간의 생각을 들어 봤자 땅을 면치 못한다. <육적 두뇌>로 생각하고 행한 것은 희망에 불타서 이뤄 놔도 역시 땅바닥에 있다.

10. <영적 두뇌>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놓으면, 천국에 모두 다 이루어져 있다. 고로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누린다. 영원히 보람이다.

11. 어떤 문제를 육계에서 보니 답을 못 찾았다. 영계에서 보니, 답이 보였다.

12. <육적 두뇌>로 찾은 문제의 답을 영계에서 보니, 작은 차가 가다가 함정으로 빠지는 것을 보았다. <영적 두뇌>로 찾은 문제의 답을 영계에서 보니, 작은 차를 끌고 그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반대로 돌아서 가니 함정에 안 빠졌다. 일 처리하는 방법을 작은 차를 가지고 길을 가는 것으로 보여 주셨다.

13. 영적 두뇌는 육적 두뇌보다 1000배 낫다.

14. 전능자 성자가 보여 주는 구상이어야 최고다!

15. 두뇌의 차원이 낮은 데서 벗어나면, 자기 스스로 두뇌의 차원이 낮았을 때 하던 행위를 아예 안 한다.

16. 세상을 보아라. 지능대로 만족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면서 즐기는 것을 보아라. 지능대로 이성 향락을 즐기는 것을 보아라. 지능대로 각종 물질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아라.

17. 지능이 낮으면, 한 나라 주권자가 되어도 국가와 백성들의 돈을 훔쳐 자기 것으로 만든다.

18. 지능이 낮은 문화와 세계를 보며 좋다 한다. 지능이 낮으니, 그것들을 보며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기뻐한다. 하나님적 지능을 가진 자는 아예 그런 문화와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다.

19. 그 시대에 해당되는 전능자의 뜻을 좇아 사는 자들이 인류에서 지능을 가장 높게 높이고 사는 자들이다.

20. 지능이 낮으면, 현실에만 만족하며 현실주의자로 산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가 해 놓은 것들이 안개같이 사라진다.

21. 현대인들은 지능이 극히 땅에 깔려 현실만 보고 현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니, 미래가 없다. 미래에 천국을 100% 보장해 놓고 살고 있느냐. 천국을 보장받아 천국 열쇠를 손에 넣고 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능이 낮아 현실주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22. 내 고향 사람들을 보아라. 현실주의로 살던 자들과, 미래를 보고 두뇌의 차원을 높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산 나를 비교해 보아라. 미래 없이 현실만 보고 산 자들은 때가 되니 과거로 끝나고 사라졌다. 나는 현실을 살면서 미래를 위해 행하였기에 오늘날같이 지상에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천상천국도 가도록 만들어 놓았다. 신앙적으로 볼 때,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는 자들은 결국 때가 되면 모두 가을 들풀같이 사라진다. 현실로 끝나고 미래가 없다.

23. ‘현재’와 ‘미래’, 두 가지를 위해 살아라. 곧 현재에서 미래를 위해 살라는 것이다.

24. ‘미래’는 ‘현재’에서 낳는 것이다.

25. 가령 가을에 열매를 따려면, 현재에서 가을을 위해 나무를 가꾸고 열매들을 키워야 된다.

26. 지능이 낮으면, 현실에 보이는 것들만 생각하고 행한다. 그러니 결국 현재가 끝나면 다 끝나게 된다.

27. 영계는 미래 세계다. 현재에서 육이 영을 위해 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서 삼위와 함께 살면, 영이 육의 행위대로 미래의 것을 받아 변화된다. 그러다 육이 죽으면, 영이 변화된 대로 천국에서 산다.

28. 하나님은 미래의 영의 세계를 위해 계획적으로 지구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29. 인간이 육만 보고 살다가 육계에서 끝나게 할 것이었다면, 아예 지구도 만물도 인간도 창조하지 않으셨다.

30. 사랑해서 육계에서도 삼위의 대화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살다가 그 영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삼위의 대화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31.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면, 삼위는 그들을 창조한 기쁨에서 만족하고 끝내신다. 그중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여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있으면, 삼위는 그들을 창조한 기쁨

과 서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만족하신다. 그 영이 구원받는 차원, 휴거되는 차원까지 살면, 휴거된 영들을 천국에 데려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일생 동안 사랑해 주며 살듯 사랑해 주며 영원히 만족하신다.

32. 온 인류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매일 사랑하고 살면, 마치 남자가 여자를 밤낮 사랑하면 사랑이 질리듯 질리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웃으시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코끼리가 비스킷을 많이 먹는다고 질려 하느냐?” 하셨다.

33. 온 인류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마치 한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안 질리듯 안 질려 하신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은 밤낮 사랑한다며 부르고 찾는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부르고 찾는다. 이같이 하는 지구촌의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수십억 명이나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코끼리가 비스킷 먹는 정도다. ‘사랑’을 목적하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 개개인의 사랑이 너무 작다. 기대에 어긋난다.” 하셨다.

35.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같이 육체적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다. 정신과 혼과 영으로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지구 세상의 70억 명이 매일 100번씩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랑의 비만증이 없으시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족하도록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꼭 휴거시켜 천국의 신부성에 거하게 하신다.

37. 사랑의 신이 되어 사랑의 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라.

38. 사랑에 불타면, 모든 죄도 다 태워 없어진다.

39. 두뇌의 차원이 낮고 지능이 낮으면 육체적 사랑이나 생각하고 차원 높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영적 사랑은 생각도 못 하고 사랑도 못 한다.

40. 지능이 낮은 자는 육적 사랑을 하고, 지능이 높은 자는 영적 사랑을 한다.

41. 두뇌 사랑이다. 두뇌도 실상 하나의 육체다. 다만 뇌, 마음, 정신, 생각, 혼,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 온몸도 뇌와 혼과 영과 일체 되어 사랑하게 된다.

42. 영적 사랑은 끝이 없다. 설명할 것 없이 무한하다.

43. 두뇌가 낮은 자들의 삶을 보면, 늘 바닥에서 기는 삶을 산다. 만화책, 소설책, TV나 보고, 먹고 입고 자고 노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육에 속한 이성 향락이나 즐기고, 세상 썩은 문화나 즐긴다. 그들의 미래를 보면, 그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대가를 받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육이 그같이 놀고 살았으니, 자기 영도 그같이 놀고 먹고, 이성으로 즐기고, 세상 예술이나 즐기고, TV나 소설책이나 보고, 각종 음란한 세계나 즐기는 영계에 가서 또 살 것으로 알기도 한다. 역시 영의 지능이 낮은 연고다. 영계는 육계와 다르다. 육은 죽으면 그대로 땅에 묻혀 끝나고, 영은 자기 육이 행한 대로 대가를 받으며 산다. 육이 그같이 살았으니, 영은 해 놓은 것이 없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44. 악마들의 세계인 지옥, 음부, 무저갱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다. 육이 세상에서 살 때 영적으로 신앙의 지능이 낮아 땅에 속해 산 자들의 영이 그곳에 가 있다.

<2013년 10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두뇌에는 지구와 같이 그 속에 각종 보물과 자원이 상상도 못 하게 많이 묻혀 있다.

2. 지구에는 땅속에 많은 보화와 자원이 묻혀 있다. 사람의 두뇌도 그러하다. 고로 두뇌로 생각하고 행해라. 그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 뇌에 묻혀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이 상상도 못 하게 많이 묻혀 있다.
3. 영적인 것은 신령하여 영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찾아내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며 깊이 보고 생각해야 찾아낼 수 있다.
4. 두뇌의 차원을 높여야 땅에 속한 것도,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도 보물과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다.
5. 깊은 기도를 해야 신령해져서 두뇌가 총명해진다. 고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6. 성자를 발견하고 그와 대화하면, 전능하신 신의 구상과 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7. 보화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속에 있는 것이나 발견하면 즉시 캐내어 취해야 자기 것이 된다.
8. 영의 세계의 보화는 순간 발견한다. 그러니 그때 순간 사진 찍어 저장하듯, 순간 온 생각을 기록하여 저장해라.
9. ‘생각’이 느리고 ‘몸’이 느리면, 영의 세계의 것은 빛같이 빨라서 못 잡는다. 고로 뇌를 예리하게 만들어야 된다.
10. 생각해야 먹는다.
11. 행해야 먹는다.
12. 좋아해야 먹는다.
13. 깨어나야 먹는다.
14. 줘야 먹는다.
15. 성자와 함께다.
16. 말 안 하면 모른다.
17.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다르다. 행해도 눈으로 안 보이고, 말해도 귀로 안 들린다.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혼이 깨어 있을수록 더 확실하다. 육적인 것을 등지고 차원을 높여야 영의 세계의 것이 더 확실하게 보이고 들린다.
18. 깨달은 것이 생각나 영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19. 사람들은 어느 때는 성자가 가까이 있다 생각하고, 어느 때는 멀리 있다 생각한다. 성자는 항상 옆에 계신다. 자기가 성자를 가까이 생각하고, 혹은 멀리 생각할 뿐이다. 성자와의 거리 조정은 자기가 한다.
20. 성령님도 성자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같이 우리와 적당한 거리에 계신다. 자기가 마주보느냐 등지느냐, 가까이하느냐 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기 행위에 따라 성령님과 성자와의 거리가 좌우된다. 자기가 먼저 시동을 걸고 행하는 것이다. 기도다. 말씀이다. 사랑이다. 계획적으로 행하기다. 목적을 이루기다. 하면 되고, 안 하면 바위에 짝이 안 나듯 안 된다. 하면, 하는 시간부터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격이다. 안 하면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가는 격이다.
21. 그림을 못 그려도 끄적거리면 자기 작품이 된다. 거기서 계속 더 하면, 자기 차원에서 좋은 그림이 나온다. 성자를 향한 만사의 일도 그러하고, 사랑도 그러하다. <유능>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22. 성자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한 일은 싫어하신다.

23. 유능은 무능에서 출발한다.

24.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에서 출발한다. 후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행위에 따라서 100에서 끝나기도 하고, 1000에서 끝나기도 한다.

25. <시작>은 시동이다. <과정> 중에는 희락, 기쁨, 수고, 고통, 몸부림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행하면, 결국 삶의 걸작품이 되어 영원까지 간다.

26. 늦게 시작하더라도 먼저 운동장을 뛰거나 몸을 풀고 나서 행해야 그 일을 하는 내내 좋다. 늦잠 잤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행하듯이, 만사의 모든 일도 늦게 시작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하기다. 시동 걸고 하다 보면, 열이 나서 잠이 천 리까지 달아나고 일이 잘된다.

27. 자기 할 일을 누가 해 주냐. 저마다 자기 할 일들이 쌓여 있어 자기 할 일을 하기에 숨 가쁘다. 네 할 일을 네가 해라.

28. 육신을 구슬리고, 마음을 구슬리고 행해라. 그래야 굳어진 뇌와 마음과 몸이 풀어진다.

29. 혼자 하면, '삶의 잠'이 들어도 깨워 주는 자가 없다. 협력하여 같이 해라. 두 사람이 서로 당겨 주고 밀어 주면서 하면, 배나 더 한다. 둘이 행하여 얻은 것은 둘이 나눠 가져도 혼자서 하고 얻은 것보다 많다.

30. 성자와 분체와 그 일의 사역자들과 같이 해라. 혼자 하는 자는 혼자 흥분하고 혼자 열 내어 사랑하는 자와 같다.

31. 영적으로는 성자와 함께, 분체와 함께다. 육적으로는 성자의 지체들과 함께다.

32. 행하지 않으면, 빈 접시다. (얻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33. 네가 맡은 일을 몸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제때' 하기다.

34. 안 하면, 몸도 마음도 안 하는 데로 빠진다. 하면, 몸도 마음도 하는 데로 빠진다.

<2013년 10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꿈은 결론이다.

2. 꿈의 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3. 육신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좋은 꿈이 껴진다. 꿈은 자기 육신의 삶을 반영해 주는 영적 현상이다.

4. 사람이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 시대에 살았을 때는 여자들이 머리에 20~30kg의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물을 옮겼고, 남자들은 60~70kg의 무거운 나뭇짐을 지게에 지고 옮기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연구하여 수레를 만들어 거기에 무거운 것을 싣고 끌고 다녔다. 다음은 차를 만들어서 운전하여 다녔다. 이와 같이 저마다 자기를 발달시켜 원시인 삶을 벗어나야 편하다. 구시대 구약역사와 신약역사도 하나의 원시인 신앙이다. 최고로 발달된 성약역사는 차, 비행기, 우주선, 컴퓨터, 이메일 등 발달된 차원의 역사다. 성약역사 안에 살면서도 영적인 발달을 계속해야 육도 혼도 영도 편하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휴거도 육과 혼과 영이 발달돼야 하게 된다.

5. 지금도 원시인들은 옛날 방법대로 등과 어깨에 짐을 지고,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수레나 말과 소에 짐을 싣고 다닌다. 발달해야 된다. 신앙의 원시인들도 그러하다. 구시대는 원시인 신앙의 삶을 살고, 새 시대는 발달된 문명의 삶을

산다.

6. 새 시대를 맞은 자들 중에서도 옛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새 시대의 것을 일부만 행하면서 옛 시대의 것도 사용하면 서 사는 자들이 있다. 구시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새 시대 사람이 되어 새 시대 혜택을 받는다.

7. 영을 발달시켜야 된다. 시대에 따라 차원 높게 발달돼야 힘들지 않다.

8. 어떤 사람은 발달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안 쳐도 잘 해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달되지 못하여 몸부림쳐 겨우 그 일을 해낸다.

9. 한 사람은 등에 지고 가고, 한 사람은 수레를 만들어서 간다. 다른 한 사람은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짐을 싣고 자기도 타고 간다. 고로 수십 배 더 빨리 간다. 섭리의 사람들이 발달시키고 행해라.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행해라.

10. 신앙생활이 힘드니, 구시대에서나 새 시대에서나 신앙을 포기하고 말아 버린다.

11. 차를 이용해서 자기 짐을 싣고 자기도 거기에 타고 운전하고 가듯이, 네 뇌와 마음과 몸과 혼과 영을 발달시키고 사용하여 거기에 짐을 싣고 달리면서 살아라!

12. 정신일도 하고 하면 쉽다. 혼으로 하면 달리면서 한다. 영이 하면 날아가면서 한다. 육이 하면 겨우 짐을 지고 걸어간다.

13. 발달, 개발, 변화, 거듭남의 삶이다.

14. 노력해라. 연구해라. 깨닫고 행하여라!

15. 차원을 높여라! 노력하고 발달하여 성자가 주신 영의 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16. 모두 노력하여 달인이 되어 행하면 실수도 안 하고, 하는 일도 잘된다.

17. 모두 반복하고 노력하여 달인이 되어 행하면 차에다 짐을 싣고 달리듯 편하고, 그렇지 않으면 짐을 수레에 싣고 먼 길을 끌고 가듯 힘들다.

18. 전기의 힘, 휘발유의 힘을 이용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19. 낮은 단계에서 휴거되는 영은 없다. 최고로 발달된 단계에서 비행기를 만들어 날듯이,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주신 최고로 발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과 혼이 휴거된다.

20. 구시대 육적 말씀을 가지고서는 휴거는 상상도 못 한다. 구시대 육적 말씀을 가지고 휴거를 이룬다는 것은 형제를 신부로 만들어 결혼하라는 격이다.

21. 신부는 타인을 사귀어 만들어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육을 통해서 자기 혼과 영을 만들어야 된다. 곧 육이 전능하신 성자가 그 분체를 통해서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혼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고 만들어야 된다.

22. 비행기를 만들어 차로 싣고 다니는 것에서 벗어나 날아다니듯, 모두 구시대에서 짝 벗어나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그 육인 분체를 맞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비행기같이 천국으로 날아라.

23. 구시대 말씀 차원은 그들이 하는 말과 같이 육이 휴거된다는 차원이다. 육은 천국에 못 가니, 그들은 휴거되지 못한다. 육이 하늘로 휴거된다는 말은 수레에 짐을 싣고 공중을 난다고 하는 격이다. 그렇다고 수레가 하늘을 날겠느냐. 비행기 외에는 하늘을 못 날듯이, 영 외에는 하늘로 휴거가 안 된다. 전능하신 성자의 최고의 영적 말씀을 들어야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성자와 그 분체를 맞고 하늘로 휴거된다.

24.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과 융합될 수 없고,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과 융합될 수 없다.

25. 텃새와 철새는 융합되어 살지 못한다. 철새는 그 차원대로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

26. 이와 같이 구시대와 새 시대는 같이 살지 못한다. 두뇌의 차원이 다르고, 생활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구시대 인들은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지만, 새 시대인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그러니 어떻게 같이 살겠냐. 시간이 갈수록 새 시대는 구시대와 점점 멀어져 다른 세계로 독립되어 살게 된다.

27. 그렇게도 같이 살자고 해도 그렇게도 싫다고 하며 외면하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니, 구시대 무덤에 묻히고 육신이 살았어도 거동을 제대로 못 하고 살고 있구나. 기성은 기어서 살고, 새 시대는 새같이 날면서 산다.

28.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품듯 품어도 안 되고, 어미가 제 새끼를 사랑하듯 사랑해도 안 되고,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옷이 없으면 알몸만 봐도 되니 오라고 해도 안 오고... 끝났다.

29. 구시대는 왜 새 시대로 오지 않을까? 뇌 체질, 마음 체질, 몸 체질, 환경 체질이 구시대 체질이기 때문이다.

30. 시골에서 미꾸라지 먹던 체질은 바닷고기를 못 먹는다. 시골 논들을 모두 개발하여 없앴으니, 미꾸라지가 어디 있겠느냐. 시대가 뒤바뀌었다!

31. 구시대 체질과 환경에 매이지 않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시대 혼인 잔치 하여라.

32. 새 역사는 발달 잔치, 개발 잔치, 말씀 잔치, 사랑 잔치, 신부 잔치, 육 휴거 잔치, 영 휴거 잔치 역사다.

33. 한 몸이라도 '머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몸'이 하는 일이 다르다. 종교도 '머리'가 되는 <새 역사>가 하는 일이 다르고, '몸'이 되는 <구 역사>가 하는 일이 다르다.

34. 내가 어리면 상대도 어리다. 예전에 내가 어리게 행할 때는 상대도 어린 자들이 모여들었다. 내가 높이 나니, 상대도 나는 자들이 되어 내게 왔다.

35. 과거는 어린아이 시절이고, 현재는 성장된 시대다.

36. 과거는 초가집이고, 현재는 궁궐이다. 변화다. 발전이다.

37. 내가 행하는 대로 내 상대도 행한다.

38. 세상 삶의 차원도 높은 차원의 삶과 낮은 차원의 삶이 있다. 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39. 저마다 자기가 하기에 따라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

40. 사람은 자기 차원대로 나뉘며 보람을 누리며 희망 속에 살아간다.

41. 사망의 그늘에 처해 사는 자들도 자기 나뉘며 보람을 누리며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

42. 안 하면 차원 낮게 살고, 뇌를 풀고 몸을 연단하여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행하며 살면 차원 높여 발달되어 살게 된다.

<2013년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네가 나인데 내가 아무에게나 나타나겠느냐.
2. 필요한 것만 합당하게 하자.
3. 영으로 알아야 메시아를 제대로 안다.
4. 육으로 알면 제대로 모른다.
5. 신같이 살아라.
6. 성자같이 살라는 말이다.
7. 잠깐 현실만 보고 알려 주지 말고 나타내지 말아라.
8. ‘그’ 육신이 살아 있을 때나 죽어 있을 때나 ‘그’가 세상 인간에게 최고의 소망이다.
9. 자기 영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는 ‘그’가 좌우시킨다.
10. 세상 왕이 크냐. 똑같은 한 사람이다. 순간 한때의 사명이다.
11. 세상 주권자 역시 때가 되면 늙고 가련하게 죽는 것을 보아라. 한 인생이다.
12. 온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가장 큰 사람은 인생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를 통해 나타나 행하신다.
13.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육으로 쓰시는 자가 신의 행하심을 안다.
14. 육은 아기라면, 영은 어른이다. 고로 항상 영을 중심하여 살아라.
15. 영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육계에서 행하여라.
16. 육계는 옷과 같고, 영계는 몸과 같다.
17. 육신에 속한 자들은 가련하다. 불쌍하다. 잠시 살다가 벗은 몸으로 얼음장 속에 들어가서 살 자들이다. 그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18. 어떤 영은 육이 죽으면, 불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거기서 견딜 수 있겠느냐.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다.
19. 거기에 비하면 세상 어떤 고통의 삶도 천국이다.
20. 몰라서 산 것이 지옥이었다.
21. 구원자는 다 알고 쳐다보고, 원하는 자만 구원한다.
22. 구원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만 나타난다.
23. 성자께 속한 세계를 알고 살아야 된다.

24. 오직 삼위가 보낸 자만 알고 산다.

25. 세상에서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죄를 짓고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만 영이 지옥에 가서 찢값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도, 그 혼과 영이 그에 해당되는 대로 찢값을 받으며 지옥 쪽에서 갇혀 살거나, 음부에서 갇혀 산다.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 혼과 영이 그에 해당되는 곳에 속해 살며 고통을 받는다.

26.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의롭게 살면, 그 영은 육신이 죽기 전에도 생명권에 속해서 그에 해당되는 차원의 영계에서 산다.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악하게 살면, 그 영은 육신이 죽기 전에도 흑암 영계에서 산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악 쪽에 있던 영은 영원히 지옥이나 악한 영계에 가서 살고, 선 쪽에 있던 영은 영원히 천국이나 선한 영계에 가서 산다.

27. 육신이 죄를 지으면, 전능자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 혼과 영도 즉시 잡혀가 영들이 가는 옥에 갇히고, 사망 주관관에 처하게 된다.

28. 육신이 의를 행하면, 즉시 그 육과 혼과 영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어 그 혜택을 받고 누린다.

29.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괴롭혔다. 그 영을 보니, 음부에서 짐승이 되어 살고 있었다. 육이 죽은 후에 영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이 살아 있을 때도 육이 행한 대로 그 영이 형벌을 받고 있었다.

30.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영을 보니, 빛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의 세계에서 다녔다. 그 후 그 사람은 신앙을 저버리고 사명자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 후에 영을 보니 가시덤불 숲속의 한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은 불에 타서 지붕도 없고 벽도 다 무너진 퇴락한 빈 집이었다. 그 영이 그 집에서 반 이상 썩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이불을 들춰 보니, 90세 이상의 다 늙은 할머니가 피골상접이 되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부끄러워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31.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 혼과 영이 바로바로 반응하여 선한 행위를 받으면 빛나게 변화되고, 악한 행위를 받으면 흉측하게 변한다.

32. 아무에게나 구원자 사명을 주면 할 것 같아도, 쥐도 못 한다. 몰라서 못 한다. 보낸 자는 삼위의 보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배우고, 행하고, 겪고,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과 성자께 인정을 받았기에 한다.

33. 각종 사명의 사명자도 마찬가지다. 사명을 준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명을 못 한다. 몰라서 못 하고, 안 배워서 못 하고, 조건을 못 세워서 못 하고, 실력이 없어서 못 한다.

34. 분체의 사명을 누구에게 준다고 해서 하겠느냐. 몰라서 못 하고, 영의 세계에 오를 수 없어서 못 하고, 50년이나 배워 하나님과 성자가 인정하는 단계에 올라야 되니 못 한다.

35. 성자가 말씀해 주고 깨우쳐 주시는 것도 본인이 배우고 실력이 돼야 그 말씀이 이해되어 깨닫고 행한다.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약속의 기준을 정하고 기도해야 답을 빨리 받는다.

2. 자기가 어떤 약속을 정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빨리 받는다.

3. 가령 새벽에 일찍 기도하겠으니 깨워만 달라고 기도하면 쉽게 응답받는다.

4. '약속의 기준'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항상 응답을 받을 수 있다.

5. 사람이 아무리 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도 계속 그 자세로는 오래 못 앉아 있다.
6. 처음에 편한 자세도 시간이 가면 불편해서 못 견딘다.
7. 발전하지 못하는 제자리 삶은 편하지 못하다.
8. 인생 모든 삶이 그때마다 하나의 앉은 자세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순간 그때는 편한데, 계속 오랫동안은 편치 않다. 고로 서 있지도 말고 앉아 있지도 말고 병행하면서 계속 변화되고 발전하고 차원을 높이며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9. 무릎을 꿇고 앉아도, 의자에 앉아도,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도, 다리를 뻗고 앉아도 처음에는 천국같이 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편하여 못 견딘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10. 신앙 안에서도 싫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삶만 살면 힘들다. 발전과 변화가 없으면 힘들다. 발전과 변화의 신앙을 하여라.
11. 체질이 되면 오래간다.
12. 사람은 생각한 것만 기억난다.
13. 뇌의 생각은 하나의 눈과 같다.
14. 사람이 눈에 본 것만 기억나듯이, 뇌에 생각한 것만 기억난다.
15. 뇌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16. 뇌를 온전히 하여 온전한 뇌를 가지고 생각을 잡고 꺾어야 된다.
17. 사람이 눈에 보여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해야 뇌에 느껴지고 뇌의 영상에 보이기도 한다.
18.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빼면 몸체만 굴러다니며 존재한다.
19. 뇌의 생각을 몸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라.
20. ‘몸’은 한 곳에 가면 다른 곳에는 못 간다. 이와 같이 ‘생각’도 한 곳에 가면 다른 곳에는 못 간다.
21. 뇌의 생각이 없다면 인간에게는 맛도, 느낌도, 희로애락도 없다. 몸도 정지된다.
22. 뇌와 몸이 한 방에 있어도 뇌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23. 마음, 정신, 생각은 하나다. 표현이 다를 뿐이다.
24. 뇌가 병들면, 생각도 제대로 작용을 못 하게 된다.
25.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 삶이 좌우된다.
26. 생각을 안 하고 종일 가만히 있으면, 무로 존재하다가 무로 끝난다.

27. 인간은 거의 육에 속한 생각을 한다. 먹고, 입고, 보고, 듣고, 몸에 닿는 것이 ‘육’이니, 육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28. 육에 속한 생각을 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사니 육에서 끝나고, 그 혼도 영도 육에 속한 흑암의 영으로 끝나고 만다.
2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는 그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다. 그래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에 따른 삶을 살게 된다. 고로 그 ‘영과 혼’이 삼위일체의 형상을 닮아 육이 살아 있을 때도 하늘에 속해 살고, 그 육이 죽은 후에는 천국, 혹은 낙원으로 행한 대로 가게 된다.
30. 인간은 뇌의 생각이 생명이다. 생각을 잡아라.
31.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생각의 차원도 낮다. 고로 그 몸도 수준이 낮고 가치 없는 몸이 된다.
32. 생각만 즐겨 하는 사람이 있고, 실천하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33. 인간 생각대로는 안 된다.
34. 전능자는 뜻이 있을 때 인간의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35. 생각의 맛을 알아라.
36. 하나님도 생각으로 행하신다.
37. 천국은 생각과 실재가 잔치하며 살아가는 세계다.
38. 세상은 생각으로만 잔치해도 천국이라 한다.
39. 세상은 육신은 고생해도 마음만 기쁘면 천국이라 한다.
40. 천국은 생각과 환경과 영의 몸이 같이 천국화되어 사는 기쁨의 세계다.
41. 자기만 만족하며 사는 육적 삶은 자기 흥분에서 끝나고 자기 행위의 삶에서 끝난다.
42. 인간의 상대가 되는 삼위일체의 생각을 가지고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근본의 지상천국의 삶이다. 그래야 육신이 죽고 그 마음과 혼과 영이 천국에 가서도 기쁨과 사랑이 영원하다.
43. 주가 원하면 해진 마음과 몸이라도 주께 드러라. 주는 이런 자를 크게 보신다.
44. 인간은 풀과 같다. 풀은 1년 살고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다. 하지만 뿌리는 살아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은 때가 되면 죽는다. 하지만 영은 뿌리처럼 살아 있다.
45. 인간은 가을철 활엽수의 나뭇잎 같다. 나뭇잎은 가을철이 되면 떨어지고 죽는다. 그러나 나무는 살아 있다. 인간의 육은 나뭇잎 같고, 영은 나무와 같다. (초안 다시 그리기)
4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나. 안 죽고 영원한 것이다.
47.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1년만 있다가 영원히 없어진다면,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겠느냐. 삼위일체는 영원히 존재하니,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하여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도 기쁘고 좋다. 상대도 자신도 영원해야 그렇게도 기쁘다. 만일 상대는 영원한데 자기는 영원하지 않다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

과 성자는 영원하시니, 네 욕을 통해 네 영을 만들어 하늘의 신부로 변화시키고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 영도 영원하고, 상대인 삼위일체도 영원하니 그렇게도 기쁘다.

48. 영이라고 해서 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안 듣고 살면, 그 영은 죽음에 처하여 사망에 갇혀 기능을 못 하게 된다. 그것이 '영혼의 죽음'이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음 없이 존재하시니 정말 좋다. 고로 항상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여라. 그러면 역사하신다.

49. 자기 영혼이 사망에 갇혀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 죽은 영혼이 되지 않도록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일체 된 삶을 살라. 그가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 삼위일체와 떨어진 삶을 살면, 영이 죽는다. 영이 사망에 처하는 것을 죽었다고 한다.

<2013년 10월 11일 자체 기도회 말씀> 중요 잠언

1. 잘하나, 못하나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

2. 전망이 훤히 보여도 어떤 전망이 보이느냐가 문제다.

3. 똑같은 산에 올라도 방향과 위치에 따라 전망이 달리 보이듯, 사람도 사명대로 영계와 육계의 전망을 보는 차원이 다르다.

4. 그 위치에 가야 그 전망이 보이듯, 영계도 육계도 자기가 그 차원과 수준의 위치에 갔을 때만 보인다. 고로 자기 혼으로 자기가 어느 영계의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분별하여라.

5. '육신'이 <육계>에 다니듯, '혼과 영'은 <영계>를 다닌다.

6. 혼과 영이 영계에서 육신이 사는 장소와 위치를 똑같이 봐도 육신이 보는 것과는 달리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영계에서 혼이나 영이 보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혼과 영의 급수대로 보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상 계시를 통해 어떤 것을 깨달으라고 성자가 여러 가지로 보여 주기 때문이다.

7. 육신이 볼 때는 평지인데, 혼이나 영으로 볼 때는 그 위치가 절벽으로 보이기도 하고, 더 좋게 보이기도 하고, 다른 환경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성자가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며, 혹은 그 사람이 알아야 될 시대와 사람을 만물로 비유를 들어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8. 성자는 생시에도 꿈에도 사물이나, 만물이나, 사람들을 들어 비유하여 계시하신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상천하지의 최고로 높고 높은 신 중의 신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삼위일체이시다. 고로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높고 높은 자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셔야 된다.

10.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상에서 최고로 큰 자가 경배해야 된다. 누가 지상에서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인가? 삼위일체는 그가 경배하기를 기다리신다. 그가 삼위께 경배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배한 것이 된다. 그가 한 말과 행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말이 되고 행위가 된다.

11. 사람도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며 경배할 때 최고로 만족한다. 삼위일체도 그러하시다. 고로 삼위가 보낸 자, 지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그가 경배할 때 최고로 만족하신다. 항상 하늘도 이와 같이 이러함을 깨달아라.

12.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삼위께 다 경배할 수 없으니, 지상의 대표가 되는 자가 상징으로 경배하고 끝난다. 이렇게 끝나는데 말을 안 해 주니,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고 끝난다.

13. 한 나라의 죄도 그 시대 대표 표상자가 대신 회개하면, 삼위는 그 회개를 받으신다. 그러나 표상자가 짓값을 처리하지 못하면, 표상자 본인이 짓값을 받는다.
14. 하나님의 축복도 민족 전체의 것을 시대 표상자가 대표로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 민족을 축복했노라.” 하신다. 시대 표상자가 받으면, 전체가 축복받은 것이 된다.
15. 대표 표상자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대표 표상자가 심판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합당해야 된다.
16. 섭리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섭리사 전체를 위해 삼위가 주시는 것을 표상자가 대표로 받는다. 어떤 것은 섭리인 중에서 그것의 표상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전체가 쓰라고 그것의 표상의 되는 자에게 주면, 혼자서 쓰는 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안 주신다.
17. 선생도 삼위께 섭리사 전체의 것을 대표로 받기도 했고, 혹은 선생 개인의 것을 받기도 했다. ‘전체의 것’과 ‘개인의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
18. 삼위께 월명동 땅, 돌, 나무를 받을 때, 선생이 섭리사 대표로 받았다. 이는 섭리 모두의 것이다. 고로 지금 같이 쓰고 있다.
19.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와 같이 ‘섭리사의 것’과 ‘주의 것’과 ‘자기의 것’을 구분해야 된다.
20. 섭리 전체를 대표해서 경제 축복을 주었는데 개인의 것으로 운영하니, 축복을 더 안 주시는 것이다.
21. 하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를 아는 만큼 복이다.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
22. 사람끼리도 누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는 만큼 안다. 삼위일체도 시대 사명자도 누가 자기에게 해 주는 만큼 안다. 고로 그동안 해 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대가를 정한다.
23. 흔히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어.” 하고 말한다.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 행동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 행동하지 않고 마음에만 있던 것은 뇌 속의 생각으로 끝난다.
24. ‘행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하고, 운명을 좌우하는지 알고 깨달아라.
25. 글씨를 쓸 때... ‘원’을 쓰고 받침을 넣느냐, ‘네모’를 쓰고 받침을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 다른 표현이 된다. / 이와 같이 사람의 행함도 처음에 ‘원’으로 행하느냐, ‘네모’로 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26. 글씨를 쓸 때... 맨 처음에 원이나 네모를 써 놓고, ‘어느 방향에서 받침을 넣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 다른 표현이 된다. / 이와 같이 사람의 행위도 ‘시작은 이같이’ 했어도 ‘끝을 저같이’ 하면, 끝의 행위를 따라 결정된다.
27. 어떤 것은 시작을 잘못하여 끝에 가서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시작은 잘못했어도 계속 목적을 틀어 온전히 함으로 끝의 목적지에서는 좋게 된 것도 있다.
28.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잘해야 완전하다.
29. <완전>은 전후, 좌우, 상하 모두 흠 없이 하는 것이다.
30.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온 세상을 대표하여 시대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받으려 하면 안 주신다. 지나치게 구하면 사탄이 계시를 주어 전하게 한다. 그것을 전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다.

31. 새 시대에도 하나님은 절대 새 시대 대표에게 시대 말씀을 주신다. 대표자가 그 말씀을 그 시대에 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펴 나간다.
32. 대표자가 삼위가 주시는 것을 받고 행한다. 고로 섭리역사 30년 동안 대표자를 미워하면 삼위를 미워한 자가 되어 반드시 행한 대로 받았다. 삼위일체는 시대의 대표자와 의논하고, 지구 세상에도 섭리세계에도 은밀히 축복도 주고 심판도 하며 행하신다. 그가 성자와 함께 무엇을 행했는지, 그에게 들어 보아라.
33. 이웃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민족 전체가 안 하고, 민족의 대표만 한다. 하늘의 역사에서도 기도나 회개 등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나 그에 해당되는 사명자가 대표로 할 것은 꼭 그가 해야 이루어진다.
34. 전체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들도 대표로 회개하거나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그것을 보고 해 주신다.
35. 올림픽경기 때도 국민 전체가 경기하러 가지 않는데, 국민 전체 중에서 제일 잘하는 자를 국가 대표로 뽑아서 대표만 경기에 출전한다. 그가 이기면 민족이 다 승리한 것이 되고, 그가 패하면 민족이 다 패한 것이 된다. 하늘 역사도 그러하니 표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표상자와 하나 되어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
36. 성자 앞에 세운 자와도 하나 되고, 성자와 주가 세운 자와도 하나 되어 전심으로 행하여라. 대표와 하나 되지 않은 자는 삼위가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다. 대표와 하나 되어 힘써 행하는 자들만 삼위가 그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
37. 대표 표상자와 일체 되어라. 그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와 일체 돼야, 그를 보낸 자와도 일체 된다. 그를 보낸 자와만 일체 되고 끝나면, 죽은 신앙이 된다.
38. 자세히 말하니, 자세히 생각하고 깨닫고 행하여라.
39. <표상자>는 태풍의 눈과 같다.
40. <표상자>는 보는 ‘눈’이고, 듣는 ‘귀’이고, 말하는 ‘입’과 같다. 또한 <표상자>는 전체 지체 중의 ‘뇌’와 같다.
41. 성경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은 표상자를 통해서 역사를 펴 오셨다. 표상자가 민족과 세계에 축복도 주고 심판도 한다. 축복과 심판의 범위는 표상자의 사명만큼 한다.
42. <표상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지상 임재의 발판이다.
43. <메시아>는 세계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대표이며, 하늘의 대상자다.
44. <표상자>는 핵심으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궁과 같다. 고로 표상자와 일체 되어 사는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궁에서 살게 된다.
4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이 아닌 것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결재도 하지 말아라. 일단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게 된다.
46.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가을 추수 때까지 가꾸고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이 시작하면, 해야 된다.
47. 아기가 태어나 생명이 시작되었으면 그 생명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시작하면, 계속해야 된다. 고로 꼭 할 일이 무엇인지 두고두고 생각

하고, 저울에 달아 보고, 자로 재 보며 확인하여라.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물어보고 행하고 시작하여라.

48. 사람의 일생이 100년이라 해도 70세가 되면, 핵심적인 일은 제대로 못 한다. 20세까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성장해야 하니 20년을 빼고, 70세 이후의 30년을 빼면, 인생 50년 정도밖에 못 산다. 거기에서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기타 시간들을 빼면 30년 정도 사는 것이다. 농사나, 장사나, 사업이나, 공부나, 공무원 일이나, 회사 다니는 일이나, 섭리 일이나 저마다 한 번 시작하면, 거의 그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끝난다. 지난날을 보아라. 한 가지를 하고 나면, 다른 것을 또 할 시간이 없다.

49. 하루를 축소하여 일생을 생각해 보자. 하루에 여행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글을 쓰든지... 제대로 하려면 하루에 한 가지밖에 못 한다. 시간상 하루에 두 가지는 못 한다.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살아라.

50. 새벽 시간에도 깊은 기도를 하든지, 깊은 잠언을 받든지...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밖에 못 한다. 정한 시간이 있으니, 두 가지는 못 한다. 한 가지를 하면, 시간이 가 버리고 배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못 한다.

51. 한 가지만 제대로 해 놓고, 나이 먹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이다.

52. 한 인생, 한 가지다.

53. 인생 최고의 핵심이며 영원한 일은 '휴거'다. 휴거의 일 한 가지만 해도 지구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한 것이 된다.

54. <신앙 성공>과 <사업 성공> 두 가지는 한꺼번에 못 한다.

55. 어떤 사람은 비진리를 세우는 데 성공하고 끝났다. /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사업을 하여 돈을 버는 데 성공하고 끝났다. 종교마다, 교파마다 하늘의 사명을 제대로 못 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 끝난 자들이 있다. /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데 성공하고 끝났다. /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 뜻을 펴는 데 성공했다. / 어떤 사람은 구시대를 따라 하늘 앞에 종이 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 앞에 자녀가 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자의 신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 / 어떤 사람은 사기꾼으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성공했다. / 한 인생은 한 가지 일을 하고 인생의 해가 진다.

56. 하나님은 <자유의지>대로 하라고, 인간에게 최고 특권을 주셨다. 자기 자유의지대로 해 놓고, 대가도 자유의지대로 행한 대로 받는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여라.

57. 식당에 가서 제대로 먹으려면... 칠면조를 통째로 먹든지, 통닭을 통째로 먹든지, 돼지고기를 통째로 먹든지, 소고기를 통째로 먹든지, 도미를 통째로 회를 쳐서 먹든지, 한식으로 한 상을 차려서 먹든지, 양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못 먹는다. 이같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일생 동안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다. 종교냐, 사업이냐, 정치냐, 학문이냐, 운동이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제대로 못 한다. 제대로 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된다. 영원한 것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게 크다.

58. 많은 돌들과 나무들이 있다 하자. 그중의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 사면, 그 하나가 핵이 되어 나머지 전체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 만족한 것이다. / 이와 같이 인생을 살 때 최고로 좋은 핵인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최고의 핵인 시대의 뜻을 위해 살면, 모든 종교와 세상의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보람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59. <핵>을 취한 자가 <전체>를 취한 자다.

60. 월명동에서도 핵은 선생이 살았던 집터다. 그 집터 200평 핵을 취했기에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얻게 되었다.

61. 사랑도 핵을 취하면 모두 취한 것이다. 성자는 사랑의 핵이다.
62. 중심이 핵이다. 고로 중심을 차지하면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
63. 볼펜도, 붓도 핵에서 글이 써지고 글씨가 좌우된다.
64. 시대도 하늘이 보낸 자, 핵으로 인해 좌우된다.
65. <핵>을 얻은 자는 <전체>를 얻은 자다.
66. <핵>으로 전체가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고, 기뻐하고, 흥분한다. <핵>으로 '고통'도 '행복'도 좌우된다.
67. 발의 핵은 보화다.
68. 산도, 돌도 핵을 보고 산다.
69. 천하의 절경과 비경은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핵이 있어야 명승지가 된다. 핵을 가지면 전체는 따라간다. 나머지는 하나의 전초 배경이다.
70. 월명동 자연성전은 민족과 세계의 핵이다.
71. 핵이 보화다. 다이아몬드다.
72. 섭리 인생의 운을 타고, 기도하고, 완전히 살아나 <시대의 핵>을 만나서 핵과 함께 일체 되어 살아라.
73. 핵을 모르고 산과 들과 나무와 돌과 물 등 배경만 만지다가 끝나지 말아라.
74. <핵>은 '사랑'이다. '진리'다. '구원'이다. '성자'다. '분체'다. '휴거'다. '천국'이다.
75. 핵을 잡고 끝내라!
76. 핵을 찾아라!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이해를 못 한다. 위의 단계를 전혀 못 보고 생각을 못 한다. 고로 옳은 말을 들어도 오해를 한다. 이는 자기 두뇌의 차원대로 듣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2.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오해한다. 고로 불신한다. 악평한다.
3.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기 두뇌의 10배, 100배를 키워도 작다. '자갈'을 100배로 키우면, 겨우 작은 수박만 하듯,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도 그러하다. 다시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 두뇌를 1000배 이상 키워라.
4. 선생은 성자의 수종을 들기 위해 두뇌와 지능의 차원을 높이고 있다. 고로 작정하고 반 년 동안 절식 기도뿐 아니라 생활을 정비하고 근신하며 조건을 세워 두뇌를 신적 차원으로 만들고 있다.
5. 왜 이같이 절식하며 기도하겠느냐. 지금 이 <휴거 때>에 꼭 필요한 하늘의 비밀의 말씀과 이상적인 말씀을 받아서 전하여, 모두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킴으로 휴거되게 하려고, 최고의 방법으로 비상한 노력을 하고 있다.

6. 사람이 두뇌의 차원이 낮고 지능이 낮으면, 위의 단계를 절대 못 보고 생각을 아예 못 한다.
7. <천국>도 영적 지능이 낮은 자는 못 간다.
8. <지옥>은 영적 지능이 낮고, 영적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들의 영이 간다. 미래를 위해, 자기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전능자를 안 믿고 현실만 보며 육체 덩이만을 위해서 사니, 그 얼마나 영적으로 지능이 낮고 두뇌의 차원이 낮으냐.
9. 사람이 지능이 낮으면, 이 시대 귀한 말씀을 들어도 가치도 모르고 행하지도 않는다. 두뇌의 차원이 낮은 연고다. 고로 육신도 고생이 많다.
10. 시대 말씀을 예사롭게 듣는 자는 두뇌의 차원이 땅에 닿은 자다. 말씀을 절실히 듣는 자만 그 순간부터 두뇌가 차원 높게 맑아지고 총명해지고 명철해지면서, 죽음에서 일어나 새롭게 부활된다!
11. 성자가 그 육을 통해 주는 말씀을 받아야 두뇌의 차원이 높이 살아난다. 이 원리와 이치를 꼭 깨달아라.
12.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는 ‘현실’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 <현실주의자>들은 ‘육 중심의 삶’을 산다.
13. <두뇌의 차원이 높은 자>는 ‘미래’에 중심을 두고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알고 따르며, ‘영 중심의 삶’을 산다.
14.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사기 당하고, 늘 자기에게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인데도 돈을 써 가면서 하고, 어린 10대들한테도 속는다. ‘기도하여’ 차원 높은 두뇌를 가져라!
15. 구시대에는 구시대에 대해서만 지능이 높다. 새 시대에 대해서는 지능이 낮아서 모른다. 고로 새 시대에 오지 못한다.
16. 사람이 지능이 낮았을 때는 수준 낮은 행동을 한다. 그러다 지능이 높아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기저귀를 차다가 크면 채워 줘도 벗어 버리듯, 지능이 낮았을 때의 행위를 절대 안 한다.
17. 모두 자기 지능의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지능이 낮은 차원에서 짓던 죄를 절대 안 짓는다. TV, 만화, 소설, 퇴폐 문화를 멀리하며, 각종 부끄러운 일을 절대 안 한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도 안 한다.
18. 죄를 안 지으려 참지만 말고 굳은 뇌를 풀고, 두뇌의 차원을 높이고, 지능의 차원을 높여라. 두뇌의 차원과 지능이 높아지면, 자기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게 된다.
19.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향락을 즐기며, 성적 사랑에 빠져 사는 자들을 보아라. 영적 두뇌가 땅에 닿아 살기 때문이다. 현실만을 위해서 사니 미래에 소망이 없고, 미래에 가서는 문제에 부딪힌다.
20. 조건 기도를 하며 조건을 세우는 것도, 절식 기도를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삶과 소망’을 두고 해야 된다. 현재 고생돼도 미래에 소망이 있어야 그 희망의 힘으로 현재를 이기고 능히 기쁨으로 감사하며 갈 수 있다.
21. <현실주의자>들은 ‘순간’만 보고 살고, ‘오늘’만 보고 살고, ‘현실’만 보고 산다. 가을을 위해 봄에 씨를 뿌려 가꾸지 않으면, 가을에 가서 거두지 못한다.
22. 현실을 살면서,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된다.
23. <지상>은 육신이 사는 현실의 세계다. <천국>은 육신이 현실에서 살면서,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변화시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서 성자를 맞고 휴거되어 가는 미래의 세계다.

24.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들은 ‘현실’만을 위해 살아간다. <두뇌의 차원이 높은 자> 들은 ‘미래 영의 세계’를 위해 철저히 영적으로 산다. 그러므로 자기 영을 천국에 가게 한다.
25. 욕을 가지고 현실을 살면서, 꼭 미래를 위해 영을 중시하여 살아라.
26. 현재만 보고 사는 자는 휴거되지 못하고, 그 영이 미래 없이 사망으로 기울게 된다.
27.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현실주의자가 되어 현실에 중심을 두고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기뻐하며, 세상에만 중심을 두고 현실에서 기뻐하고 사는 것에만 만족을 느끼며 산다. 이런 자들은 재벌이나 명예가나 어떤 정치인이라도 ‘영적으로 두뇌가 땅에 닿아서 사는 자’들이다.
28. 섭리사를 따라오다가도 두뇌의 차원이 낮아 그때 현실만 본 자들은 현실만 보고 행하다가 미래를 못 보고 성자가 선포하는 휴거의 역사를 못 보고 나갔다.
29. 구시대 기성인들도 미래를 못 보고 그때 현실만 보고 반대하고 불신한 것이다. 두뇌의 차원이 낮고 영적 지능이 낮으니, 육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신령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30. 자기 두뇌를 영적으로 살아 있게 하고, 매사에 자기 생활을 보아라. 그리고 자신이 지능이 낮은 차원의 행위를 하는지 관찰하여라. 자기가 지능이 낮은 차원의 생각을 하면, 즉시 무섭게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명령하면서 엄히 못하게 하여라.
31. 두뇌의 차원이 낮고 영적 지능이 낮으면 부끄러운 일들을 자주 하고, 실수를 자주 하고, 축복으로 준 것도 귀히 사용하지 못하고 뺏기고, 수준 낮은 말과 행위를 자주 반복한다. 고로 보는 자들이 마치 다 큰 사람인데 다 벗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자같이 보고, 속닥거린다.
32.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깨달아지지 않는다. 모른다. 고로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자기 성격과 모순도 안 고친다. 고로 휴거가 안 된다.
33.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 두뇌의 차원을 높이고 새롭게 부활시켜라.
34. 정신일도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 노력하고, 기도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성자와 분체와 사랑 일체 되어 말씀을 들은 즉시 빨리빨리 행하고, 무엇을 모를 때는 아는 자에게 묻고, 분체와 일체 되고, 분체와 일체 된 자와 일체 되어라. 그러면 두뇌의 차원이 높아진다.
35. 기도하여라. 그러면 두뇌의 차원이 높아져서 영적 지능의 차원도 점점 높아진다.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가 옆에 왔다 해도 내가 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신다. ‘대화’가 그만큼 크다.
2. 말하지 않으면, 성자도 주도 가신다.
3.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상대의 말을 귀로 듣고 상대의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떨어지면, 전화로 대화하고 스마트폰의 화면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 이와 같이 <영계>도 그러하고, <성자>도 그러하다. 고로 성자가 가까이 있을 때, 실감 나게 <대화>도 하고 <사랑>도 해라.
4. 바닷가에서 홍합, 전복, 조개를 잡아서 한쪽에 쌓아 놓고 급히 그것을 담을 자루를 가지러 가듯이, 새벽에 눈을 떴으면 급히 일어나라. 눈을 떴는데 바로 안 일어나면, 마치 자기가 잡은 해물들을 쌓아 났는데 누가 가지고 도망가듯, 새벽기도 시간이 도망가 버린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가 일어날 기회다.

5. 바닷가에서 홍합, 전복, 조개를 잡아서 쌓아 놓고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어서 잠깐 옆의 상점에 그릇을 구하러 가듯이, 새벽에 눈을 떴으면 즉시 일어나 기도해라. 모든 일을 두고도 그러하다.

6. 새벽 꿈에 내 혼이 흐르는 바닷물에 있었다. 거기에 쪽바가지만 한 조개들이 있어서 잡았다. 누가 먹고서 버린 껍질이었다. 껍질이라도 크고 좋아서 주웠다. 그런데 거기서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살아 있는 조개들이 있었다. 작은 조개는 잡아 놔도 개구리같이 팔딱팔딱 뛰어 도망갔고, 큰 조개와 홍합들은 무거우니 기어서 도망갔다. 바가지만큼 큰 조개와 홍합과 전복들이었다. 모두 주워서 쌓아 놓았다. 그런데 담을 그릇이 없었다. 옷을 벗어서 거기다 싸 가지고 올라 하다가, 거리에 나가면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되겠기에 급히 그릇을 구하러 갔다. 조금 가 보니 포대 하나가 있었는데, 누가 거기에 음식을 담아 놓고 먹고 있었다. 그것을 좀 줄 수 있냐고 하니, 줄 수 있는데 음식을 다 먹고 준다고 했다.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잡아 놓은 조개, 홍합, 전복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애간장을 태우다가 잠에서 깼다. 깨 보니, 새벽 1시 5분이었다. 그때 순간 눈을 감았는데, 한 장면이 또 보였다. 사람들이 쪽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그중의 한 10대 여자를 일으키더니 “네가 운전을 해서 나를 태워다 줘.”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운전시키려 하는 저 여자가 운전을 잘합니까?” 하니, “운전 경력 10년입니다.” 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일어나서 꿈에서 본 것들을 잠언으로 쓰고 있다.

7. 새벽에 잠에서 깨고 눈을 떴을 때는 즉시 일어나야 된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안 일어나면 또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 마치 바닷가에서 홍합, 소라, 전복, 조개를 잡아 놓고 그릇을 가지러 갔다가 시간이 지체되면 잡은 것들이 다 도망가듯, 그러면 성자께서 새벽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주시는 ‘말씀’이 사라진다. 곧 ‘성자’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8. 모든 할 일을 두고 할 때는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놓고 옆에 순간 그릇을 가지러 간 자같이 빨리 급히 행하여라. 늦으면 잡아 놓은 것들이 도망가듯, 행할 기회는 사라진다.

9. 꿈에 잡은 바가지만 한 조개, 홍합, 전복들은 그와 같은 ‘잠언’이다.

10. 성자는 조개, 홍합, 전복들을 ‘잠언’으로 비유해서 보여 주셨고, ‘성자’로 비유해서 보여 주셨다. 조개, 홍합, 전복, 소라를 잡아 놓고서 열린 그릇에 담지 않으면 도망가듯, 성자가 옆에 와 계신데 급히 행하지 않으면 떠나신다.

11.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한 시간이 있다. 그때 해야 된다.

12. 영계는 육계와 행하는 것이 다르다. 육계에서는 육체로 행하니, 한계 이상은 전혀 못 한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혼체가 하고 영체가 하니 공중을 날기도 하고, 바다에서 수영할 때도 마치 스키를 타고 눈 위를 시속 100km로 활강하며 날듯 빠르게 날면서 수영한다. 혼체와 영체의 수영법은 육체가 수영하는 자세와는 다르다. 무릎을 꿇은 자세로 물에서 앉고, 양손으로 노를 젓듯이 물을 저으며 물을 제치며 달린다. 어느 때는 육계에서처럼 배영, 자유영, 평영, 접영도 하는데, 그 빠르기는 육체보다 4배 이상 빠르다.

13. 육의 일도 육이 혼과 영과 함께 해야 빨리한다.

14. 영계의 것은 육계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기가 크다. 영계에서는 조개, 홍합, 전복도 바가지만 하게 크다. 영들의 지체도 육의 지체보다 크다. 영의 눈, 귀, 손 등은 모두 육의 것보다 크다.

15. 성자가 나타나실 때는 ‘본체’로 안 나타나신다.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못 본 사람이다. 성자에게는 자체 분체도 있어서 자체 분체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성자 혼체로 보면 된다. 어느 때는 슬쩍 스치면서 대역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아는 사람으로 보이며 나타나고, 어느 때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보이며 나타난다. 성자 분체가 성자의 육이니, 높고 깊은 차원의 것은 거의 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16. 꿈에 가끔 가던 장소를 가게 된다. 그곳은 영계의 한 지역으로서 지상의 육에 속한 지상영계도 있고, 그보다 더 차원 높은 영에 속한 영계도 있다.

17. 지구 안의 영계는 지상영계라 한다. 육에 속한 영계를 지상영계라 한다.
18. 영적 눈을 떠서 영의 것을 보거나 꿈에서 어떤 것을 볼 때, 육에 속한 지상영계를 보기도 하고, 영에 속한 영계를 보기도 한다. 상황을 꾸며서 합당하게 보여 주기도 한다.
19. 꿈틀거리면, 상대 세계는 제시간을 지켜 행하니 사라진다.
20.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해야 된다.
21. 말씀을 쓰다가 순간 졸려서 잤는데, 아까 간 곳을 또 가게 되었다. 그런데 물도 흐르지 않았고, 환경도 아까와는 달라졌다. 물이 흐르는 곳은 약하게 흘렀고, 녹조 현상이 심했다. 육신의 행위대로 차원이 낮은 영계를 본 것이다.
22.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차원의 영계를 본다.
23.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의 차원이 낮으면, 영계에서도 차원이 낮게 보인다.
24. 영계는 육신 행위의 차원대로 보여 준다.
25. 육계도 자기 행위의 차원대로 살아간다.
26.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높은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한다.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일생 동안 영원히 높은 차원에는 못 간다.
27. 방금 잠을 잘 때 거리를 나와서 걸어가는데, 군인들이 자기 처소에서 반은 자고, 반은 태만하게 있었다. 군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곧 지휘관이 오니 일어나!” 하며, 총을 메고 행동했다. 꿈의 계시로 내 상태를 보여 준 것이다. / 이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고, 다시 잠언을 쓰기 시작했다.
28. 성자는 육적 상황을 모두 영계로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29. 어떤 일이든지 100% 행해야 100% 빛이 나고 근본을 알게 된다.
30. 영계에서나 혼계에서 성자가 많은 것을 보여 주셔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만 중심하여 깨달아라. 성자는 특히 자기 육의 행위를 깨우쳐 주신다.
31.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 영계를 상 차원, 중 차원, 하 차원으로 보여 주신다.
32. 상 차원의 삶을 사는 자는 다 성공한다. 이는 100% 행하는 삶이다. 누구나 100%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최대로 안 하니 못 하는 것이다.
33. 무엇을 해도 100% 해야 성자와 근본적으로 일체 되고 통한다.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듯, 모든 것은 끝까지 하는 자의 것이다.
2. ‘지상에서의 영원’은 ‘끝까지’와 같다.
3. 영원한 자가 상천하지의 주인이다.

4. '지상에서 영원한 자'는 '끝까지 하는 자'를 말한다.
5. 육신 속에, 뇌 속에 '마음'이 들어 있으니 육신을 뺏어야 된다.
6. 육신을 뺏겨 이성 문제가 일어나면 사탄의 것이 된다. 사망에 육신이 가 있는 것이다. 회개하여 용서받는 자만 육신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조건을 세운 후 사망에서 나오게 된다.
7.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육신'을 뺏기니, '마음'도 그들의 것이 되어 살았다.
8. '육신'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9. '마음'만 있는 곳에는 '육신'이 없다.
10. 제2의 육신은 '혼'이다. 만일 육신이 갇혀 있으면, 혼이 간다. 그리고 영이 간다.
11. 혼과 영이 마음과 같이 가면, 제2의 육신 역할을 하게 된다.
12. 만일 육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육신'도 사망에 갇혀 있고, 그 '마음도 혼도 영'도 사망에 갇혀 있다. 회개한 자만 육신이 갇혀 있어도 마음과 혼과 영이 육신 대신 활동할 수 있다.
13. 자기 생각에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행했는데, 실제로는 안 되었다. 왜일까?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14. 육신의 기구를 가지고 다니며 마음과 생각이 육신과 함께 행한다. 고로 '육신'을 죄 짓는 데 뺏기지 말아라.
15. 매시간 네 육신을 다른 일에 뺏기지 말아라. 육이 안 가면 행하지 못하니, 얻지도 못한다.
16. 몸을 성삼위께 줘야 된다. 유형 세계에서는 '육의 몸'이다. 무형 세계에서는 '영의 몸'이다.
17. '몸'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이다.
18.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쓴다.
19.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만 의인 취급 받고 선하다 한다. '몸'이 행하지 않으니, '혼도 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20. '육의 몸의 변화'가 '혼과 영의 몸의 변화'다.
21. 전능자는 "행한 대로 갚아 준다." 하셨다. <행위>는 '육'이 있어야 가능하다. 마음으로 행한 것 중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도 행실로 안 하면 마음 차원에서 끝난다.
22.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는 '몸'을 뺏기고, 4000년 동안 '종의 몸'이 되어 고통 속에 살았다.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고,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자들만 종의 몸에서 '아들의 몸'으로 몸을 빼앗았다. '몸'을 뺏으니, 그들을 통해 신약역사가 이루어졌다.
23. 메시아 예수님을 죽인 죄로 신약 2000년 역사는 '자녀의 몸'으로 끝났다. 성자가 다시 오시고, 땅에서 '몸'을 애인으로 뺏은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를 주로 믿고 성자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만 '신부의 몸'으로 삼았다. 그들을 데리고 <성자시대 성약 휴거 역사>를 펴 나가고 있다. '몸'을 가지고 하지,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몸'을 뺏기면 시체다.

24. 네 ‘몸’을 매시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기뻐하시는 <사랑의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예배다. 그러면 그 ‘혼도 영’도 <성자의 신부>가 되어 성자에게 그 몸을 드리게 되고, 몸이 가니 그 마음도 드리게 된다.
25. 사탄은 예배 시간을 못 지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한다. 고로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에 각종 이유를 대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문서로 말씀을 보게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에게 자기 사연을 고하고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역시 ‘몸을 뺏긴 자’다.
26. 자기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으니, 자기가 자기 몸을 보아라. 자기가 어떤 곳에 빠지는지 보아라.
27. 자기 삶에 자기 몸을 뺏기고, 자기 일에 자기 몸을 뺏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 몸을 뺏기고, 이성애 자기 몸을 뺏기는구나. 네 몸을 뺏기지 말아라. 몸 뺏기면, 결국 ‘천국 휴거 길’ 못 간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너를 구원할 자의 마음에 안 들면, 휴거를 못 시킨다.
29. 많은 것들을 해 놓고서 조금 남겨 놓은 것을 못 해서 휴거 못 되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30. 아예 거기를 떠나 몸과 마음이 모두 성자 주관권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는 휴거되지 못한 자다.
31. 자기 육의 행위를 보면, 자기가 휴거됐는지 안 됐는지 안다.
32. 각자 <자기 휴거 기간>은 아무도 모른다. <영 휴거>는 시작됐다. 고로 먼저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일을 최우선권으로 먼저 해야 된다.
33. 지금 이때 여유 부리는 자는 휴거되지 못한다.
34. 지금 이때 ‘휴거’같이 서둘러서 해야 될 일은 없다.
35. 모두 다 휴거될 수 있다. 그러나 몸도 마음도 정말 잘하려고 하며 전심을 다하지 않기에 안 되는 것이다.
36. 거의 보통으로 하고 있지, 전심으로 하는 자는 적다. ‘몸’을 자기 주관권으로 쓰면서 사니, ‘마음’만 가지고서는 휴거되지 못한다.
37. 가령 자기에게 휴거 기간이 3년 남았다 하자.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에 100리씩 걸어가는 길이라 하자. 매일 가야지, 어느 날 안 가고 밀리면, 다른 날 두 배 빨리 걸어가야 되니, 불가능의 확률이 커지게 된다. 고로 매일 행하기다!
38.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것은... 장마철 전에, 홍수가 나기 전에, 겨울이 와서 땅이 얼기 전에 빨리 서둘러서 자기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매일 서둘러서 몸과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 <휴거>도 성자와 분체와 하나 되어 몸과 마음을 다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39. ‘마음’만으로는 집이 안 지어진다. ‘몸’으로 지어야 된다. 이와 같이 ‘몸’을 다른 시간에 뺏기지 않고 ‘마음’과 일체 되어 성자와 함께 행하여 휴거를 이루기다!
40.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다. ‘몸’이다. ‘마음’이다.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모르니’ 신비하다고 하지만, 삼위일체는 ‘아시니’ 신비하지 않다고 한다.

2. 사람은 ‘모르니’ 신비하지 않다고 하지만, 삼위일체는 ‘아시니’ 신비하다고 한다.
3. 보석은 ‘마음’에서 잡고 있어도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
4. 육과 뇌는 마음보다 근본이다.
5. 산짐승을 마음으로 잡아맨다고 묶여 있느냐. 손으로 매고 잡아야 손에 있다.
6. 높은 차원에 올라갈수록, 영계로 보고 가르칠수록 자세히 근본을 가르쳐 준다.
7. 손에서 ‘육’으로 쥐고 있는 것이 완전한지, ‘마음’으로 목숨 걸고 쥐고 있는 것이 완전한지 시험해 봤다. ‘손’에 잡고 있는 것은 100% 됐고, ‘마음’에 잡고 있는 것은 안 됐다.
8. 어제는 손에 물병을 쥐고 나갔다. 그리고 물병을 내려놓으면서 ‘절대 물병을 지켜야지’ 하고 마음에 다짐하고 “운동하고 나면 물병을 챙겨라.”하고 마음에 명령했다. 그리고 운동하고 와 보니 물병이 없었다. 마음이 놓고 왔다.
9. 오늘은 마음을 못 믿고 몸인 손에다 물병을 맡겼다. 그리고 손목에 물병 끈을 걸었다. 운동하고 와 보니, 물병이 완전하게 손에 있었다.
10. 마음은 뇌라는 육체가 놓으면 뇌진다. 마음은 눈이 보는 대로 변하니, 눈이 다른 데 신경 쓰면 상황이 바뀌면서 잊어버린다.
11.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 육에다 마음도 같이 묶어서 행하기다.
12. 뇌에서 잊어버리면, 마음에서도 잊어버린다. 저장 시간이 짧은 뇌는 금방 잊어버린다.
13. 사랑하는 자도, 성자도, 주도 몸에서 놓지 말아라. 손에서 놓지 말아라. 뇌에서 놓지 말아라. 놓으면 잊어버린다.
14. ‘마음’으로 잡지 말아라. 이는 ‘믿어 주는 것’을 말한다. 고로 속는다. ‘몸’으로 잡아라. 이는 ‘행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고로 속지 않는다.
15. 살이 찢어진 곳은 살을 밀착시켜 꿰매 놔야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여 하나 되어 살아난다. 성자와 분체와도 그 같이 딱 붙여 꿰매 놓지 않으면 일체 되지 않는다.
16. 성자와 분체의 생각의 진행 방식이 자기 마음과 100% 통하여 그 생각을 자기 마음에 옮겨서 행하지 않은 것은 살이 찢어져서 짝 벌어진 대로 상처가 회복된 격과 같다. 그 흉터는 흉측하다.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지 않은 자의 영은 그 얼굴이 흉터로 차 있어 신부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
17. 잇몸을 찢어 썩은 이를 빼내고 꿰매듯, 성자와 분체와 하나 되는 수술을 하여라.
18. 네 몸과 마음에서 썩은 모습을 잘라내고, 네 몸과 마음을 성자와 분체에게 딱 붙여 신앙의 삶을 살아라.
19. 살다 보면 ‘우연의 일치’도 있고, ‘신의 계획’도 있다. 또 ‘만물의 법칙’에 의한 것도 있다.
20. ‘실력’으로 된 것도 있고, ‘우연’으로 된 것도 있다.
21. 사람이 열 번, 스무 번 좁은 구멍에 물체를 집어넣었지만, 안 들어갔다. 바람에 날아가던 나뭇잎은 공중에서 날다가 그 넓은 땅을 놓고서 그 좁은 구멍에 들어갔다. 이런 것은 ‘우연의 일치’다. 어떤 때는 신이 깨달도록 그같이 하실 때가 있다.

22. 아침에 회사에 가는데 길에서 노랑 옷을 입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오후에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오는데,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났다. ‘신의 뜻을 둔 역사’이기도 하고, ‘우연의 일치’이기도 하다.
23. 성경에 우연의 사건이 기록된 것도 있다. 전쟁 때, 자기는 적진의 아무나 맞고 죽으라고 화살을 쏘다. 그런데 적의 왕이 그 화살에 맞아서 고생하다가 그날 오후에 죽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었고, 활을 쏜 인간에게는 ‘우연’이었다.
24. 화살을 맞은 자는 상대편 누구의 화살에 맞았는지 모른다. 화살을 쏜 자는 누구를 맞히려고 쏜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그 방향에다 쏜 것이다.
25. 인간은 우연으로 했지만 그 위에 신의 역사가 있고, 신의 계획이 있고, 때가 되어 까마귀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배가 떨어질 때도 우연같이 있다.
26. 저마다 만물과 같이 살면서 우연을 안 겪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27. ‘우연’은 남에서 북으로 날아가는 바늘과 북에서 남으로 날아가는 바늘의 끝이 공중에서 충돌하여 땅에 떨어졌는데, 같은 위치에 떨어져 같이 사는 격같이 일어난다.
28. 우연도 기적이다.
29. ‘우연’이 일어나면 알아볼 수 있다. 신의 계획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고 행하면 좋다. 신의 계획이라도 알고 행하면 복이고, 우연의 일치라도 자기에게는 복권이 당첨되는 것 같은 하나의 운이다. 행복이다. 신의 축복이다. 신 때문에 우연도 만났기 때문이다.
30. 우연만 바라지 말고, 알고 행하여 복을 만들어라.
31. 우연으로 옥에 들어온 자도 있다. 패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있다가 마음의 눈, 판단의 눈이 먼 소경들에게 잡혀서 옥에 들어왔다.
32.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가 폭력배에게 맞고 쓰러져 있기에 그것을 말리다가 폭력배에게 얻어맞고 칼에 찔려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러다 맞은 사람과 같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런데 판검사는 “이 놈이 저 쓰러진 사람을 때리다가 자기도 칼에 찔리고, 또 상대를 칼로 찔렀구나. 두 자루의 칼이 현장에서 보였는데, 둘이 같이 싸웠구나.” 했다. 그는 마음의 눈이 먼 판검사에 의해 옥에 갇혔다. 실상은 폭력배가 두 사람을 찌르고, 현장에 두 개의 칼을 놓고 도망간 것이다. 육의 눈, 뇌의 눈, 마음의 눈, 판단의 눈이 썩어 멀었으니, 판단을 못 하는구나.
33. 우연으로 발각되니, 불의와 하늘의 뜻이 안 맞는 일이 있다.
34. 어떤 날은 우연히 문제가 일어나, 그 우연 때문에 해를 당하기도 한다. 자기에게도 우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몸 조종, 마음 조종을 잘 하여라.
35. 도시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우연의 일을 만날 때가 있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그 순간 통을 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성자가 사랑하는 자의 얼굴에 맞기도 한다. 성자가 사랑하는 자인데, 왜 지나가다 새통을 맞았는가? 이는 새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36.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새가 쏜 배설물이 그 많은 차들 중에서 자기 차에 떨어져, 하필이면 조금 열어 놓은 창문 안으로 들어와 눈에 맞기도 한다. 100만 번 계획적으로 맞히려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이 우연이 있다. 우연이 신은 아니다. 자연의 조화이기도 하다.

1. 기회는 초침같이 가기도 하고, 분침같이 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시침같이 가기도 한다.
2. 기회는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손으로 잡는 것이다.
3. 기회를 ‘정신’이라는 손으로 잡아 놓고, ‘온몸’으로 잡아 행하는 것이다.
4.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면서 선에 속해 살려면,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야 한다.
5. 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6.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7. 귀로 들었을 때가 기회다.
8.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시동이 걸린 것이다. 불의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즉시 성자를 부르면서 시동을 꺼라.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성자를 부르면서 시동이 걸렸을 때 바로 운전하듯 행하여라.
9. 하고 싶어 할 때 도와주고 행하게 하여라. 그때가 기회다.
10.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할 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과 성자의 일도 제쳐 놓고 그것을 먼저 할 정도로 강하다.
11. 좋은 일은 하고 싶을 때, 그때 즉시 행하여라.
12. 불의한 일도, 죄가 되는 일도 그것을 못 참아서 하고 싶은 생각을 못 꺾고 하게 된다.
13. 의를 행하여 절대 성자 주관권으로 나와서 사탄으로 인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다.
14. 제때를 지켜야 사탄도 쉽게 이기고, 사탄이 조건을 안 붙인다.
15. 자기 때가 되어 하더라도 모두 자기편이 아니고, 줄다리기를 할 때같이 모두 하나 되어 좋아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자기 때이니 자기가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해 하는 것이다. 그들 역시 자기 때가 되면 누가 안 도와도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된다.
16. 때가 왔어도 가만히 있으면 얻지 못한다. 때가 왔으면 무엇을 행하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17. 제때 익은 과일은 맛있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때 지나면 말라서 초라하고 없어진다. 제때에 못 하면, 하나님도 “저것은 못 한 것으로 끝내야지, 어쩔 수 없다.” 하신다.
18. 영원한 영광과 이상의 때인 휴거 때를 각자에서 주었는데, 배우고 알고도 TV, 오락, 세상 사랑, 이성 사랑, 게으름으로 열심히 안 한다. 고로 휴거되지 못하고 영원히 후회한다. 그 후회는 끝이 없다.
19. 두뇌의 차원과 지능을 발달시켜 죽음에서 잠자는 두뇌를 깨워라!
20. 기도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해야 세월이 가도 후회 없다.
21. 때가 왔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하다. 시동이 걸리고 몸이 풀리면 그때부터 속도를 내어서 가야 표가 나고, 깊은 것을 깨닫고, 큰일도 한다.

22. ‘때’는 자기가 행하여 만들고, 또 성자가 모든 것을 보고 합당한 때에 맞춰서 행하신다.

2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때’를 한 때 두 때 반 때로 정하시고, 때에 맞게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행하신다.

24. 시간은 애인이다.

25. 시간은 애인이다. 내가 쓰고 취하면 내 것이 되고, 내가 안 쓰면 남이 쓰고 취하여 남의 것이 된다.

26. 꿈에 혼이 옛집의 뒷방에 있었다. 내 옆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내 앞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눈만 뜨고 누워 있으니,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려 했다. 그 여자는 먼저 사랑하여 쓰는 자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먼저 일어나서 아랫방으로 오니, 그 여자도 나를 따라서 왔다. 문을 잠그고 있으니, 그 남자가 뒤통라와 노크했다. 여자가 반응이 없자 사라지고 여자는 나를 보고 좋아했다. 내가 새벽 기도 시간을 쓰니, 그 시간이 내 것이 된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새벽 시간을 자기가 잡아서 쓰는 것이 이와 같다. 성자를 상징으로 여자를 보여 준 것이고, 사탄을 남자로 보여 준 것이다. 그 여자는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 했다. 시간은 내가 쓰는 대로 한다. 성자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신다. 이 혼의 계시를 보고, 즉시 일어나서 기도했다. 기도는 애인이니까 성자와 같이 대화했다. 항상 모두 이와 같다고 생각하고 행하여라. 꿈에 자기와 다투고 겨루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보여 준다. 100% 행하면, 자기와 겨루는 상대와 싸워 다 이긴다.

27. 한 지역도 개발을 잘해야 되듯이, 시간을 놓고 개발을 잘해야 된다.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물어보는 날은 알고, 안 물어보는 날은 모른다.

2. <뇌>에는 육의 마음이 따로 작동되고 있고, 혼의 마음이 따로 작동되고 있고, 영의 마음이 따로 작동되고 있다.

3. 육의 마음이 혼에게 가서 혼을 움직이고, 혼의 마음이 영에게 가서 영을 움직인다. 또 영의 마음이 혼에게 와서 혼을 움직이고, 혼의 마음이 육에게 와서 육을 움직이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될수록 인간 자체 삼위 일체인 육 혼 영이 수수작용을 잘하여 마음과 생각의 작용도 잘한다.

4. 영계에 깊이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깊이 기도하여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둘째,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하여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생각을 계속 깊이 하면서 성자와 주께 계속 물어보면서 깊이 대화할 때, 영계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

5. 계시는 비유다.

6. 영계에서는 말이 실체다.

7. 영계에서는 말로 안 하고, 말 대신 실체를 보여 준다.

8. 뇌로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현상화시켜 보여 준다.

9. 생시에도 자기 육신이 행하지 않아도 뇌에 환상이 스쳐 와서 보이는 것이 있듯, 꿈에도 혼이 행하지 않아도 깨달아 보이는 것도 있다.

10. 뇌로 어떤 현상을 보여 주며 주는 계시가 있다.

11. “제시간에 잠이 안 깨지는데 어떻게 해?” 하지 말고, 잠이 깨지도록 노력해라.

12. 인간이 할 일은 인간이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13. 할 수 있으니, 하나님도 성자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14. 인간에게 하라고 한 것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도 성자도 천사가 할 일을 인간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15. 인간으로서 할 일은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다만 행하기가 어렵고 힘들 뿐이다.

16.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라고 한 일은 하면 다 할 수 있다. 못 할 것은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17. 성자가 시킨 일도 다 할 수 있다. 못 할 일은 시키지 않으신다. 인간이 그 일을 하면,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며 함께해 주신다. 고로 인간이 하려고 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18. 성자가 영계에서 주는 생각과 말들은 순간 뇌에 스쳤다가 사라진다. 영계에서 주신 것을 육계에서 받기 때문에 일순간 생각났다가 사라진다. 고로 기록하고, 즉시 행해야 된다.

19. 성자는 말하지 않고, 꿈에나 현실에 그 말하는 그 사실을 합당한 것으로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이를 깨닫고, 성자와 항상 대화하고 이야기해라. 그래야 잘 보여 주신다.

20. 성자가 계시할 때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데로 가라고만 하지, ‘왜’ 가라고 하는지는 안 가르쳐 주신다. 가 본 후에 깨닫게 된다.

21. 가령 어느 날 하라고만 하지, ‘왜’ 그날 해야 되는지 사연은 안 가르쳐 주신다. 그날 해 본 후에 깨닫게 된다.

22. 성자는 근본의 비밀은 안 가르쳐 주신다. 왜 근본의 비밀은 안 가르쳐 주냐고 물으니, 성자는 “그것을 묻는 것은 묘기를 부리는 자에게 근본의 비밀을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묘기를 부리는 자가 공연 중에 묘기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느냐.” 하셨다.

23. 성자는 꿈에 여러 가지를 보이며 깨우쳐 주신다. 고로 성자에게 묻기를 “어느 때는 제 혼이 혼계과 영계에 있는 영들을 실제로 보고 이야기한 것 같고, 어느 때는 혼계에 있는 영들이 아닌 것 같고, 어느 때는 제 뇌에서 생각한 것이 떠올라 그것이 영상으로 보여 꿈을 꾸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뇌 속으로 받은 계시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답을 가르쳐 주세요.” 했다. 이에 성자는 “묘기를 부리는 자에게 공연 중에 묘기의 비밀을 묻는 것과 같다. 묘기를 보고 깨달아야지,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느냐.” 하셨다. 고로 성자가 꿈에 각종으로 합당하게 보여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때는 뇌로 받은 계시가 화면화되어 실제같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혼계와 영계에서 영들을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현상을 만들어 꾸며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깨달은 것이 기억나며 그 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6~7가지 방법으로 보였다. 이같이 보여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보여 준 성자의 뜻이니, 어떻게 보여 주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자가 보여 주신 것을 보고, 깨닫고, 감동받고, 행하면 된다. 묘기를 부리는 자, 서커스를 하는 자들을 보고 “어떻게 저 외줄을 타지?” 그것을 궁금해할 것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보여 준 자를 좋아해야 된다.

24. 꿈에 본 계시나 낮에 실제로 본 계시나 성자의 계시는 다 귀하다. 성자가 낮에 어떤 만물과 실제 사물을 보이며 깨우쳐 주신 것을 꿈에도 보여 주실 때가 있다. 이는 같은 것이다.

25. 꿈에 더 구체적으로 보인다.

26. 낮에 어떤 사람이 하는 짓을 실제로 보여 주시고, 꿈에 그 행위를 원숭이로 또 보여 주신다. 이것은 그 속심과 그 하는 짓을 보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이 원숭이 같은 짓을 하면, 꿈에 원숭이를 보여 주신다.

27. 꿈에 자기 혼이 행하는 것은 실제이면서 비유다. 현실에서는 육신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꿈에는 비유로 보여 주신다.

28. 낮에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면, 꿈엔 사랑의 그 상대와 사랑하는 꿈을 꾸게 된다.

29. 생시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꿈에 비유로 계시해 보여 주기도 하고, 생시에 실제 ‘일어날’ 일을 꿈에 비유로 계시해 보여 주기도 하신다.

30. 육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혼도 영도 변화가 안 된다.

31. 꿈에서 혼끼리 실제로 행하는 것이 있다. 현실에서 육이 행하는 것을 꿈에서 혼도 행한다.

32. 꿈에서 혼이 아쉽게 행하든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는 혼의 실력이 그 정도라는 계시다. 곧 육신이 그 정도밖에 못 행했다는 뜻이다. 혼의 행위는 육신의 행위의 결과다.

33. 자기 혼은 자기 육의 영적인 몸이다. 고로 육의 행위와 혼의 행위는 동일하다.

34. 육을 가지고 실제로 행할 일인데 마음으로만 하고 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5. 마음으로 해도 한 것으로 되는 일은 마음으로만 해도 된다.

36. 그러나 꼭 육을 가지고 실제로 행해야 되는 일은 꼭 육으로 행해야 된다.

37. 낮에는 혼이 육의 마음과 정신과 함께 활동한다. 고로 안 보이고, 안 나타난다. 그러다 육신이 졸든지 잠을 자서 기능을 못 하면, 혼이 활동하게 된다. 이때는 혼이 보인다.

38. 낮에 육이 기능하고 활동할 때는 왜 혼이 보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을까 했더니, 성자께서 비유로 깨닫게 해 주셨다. “육이 차를 타고 갈 때 차 안에서는 걸을 필요가 없다. 그러다 차에서 내리면 그때는 걸어가야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육신이 활동할 때는 혼은 안 보인다. 그때 혼은 혼계에서 혼 나름대로 활동한다.” 하셨다.

<2013년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진으로 본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

2. 사진으로 보면, 실제 사람의 300분의 1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른다. 고로 실제로 본 자가 설명해 주는 것이 더욱 확실하다.

3. 시대 말씀도, 성자의 심정도 설명을 잘해 주는 자가 사명을 받은 자다.

4. 설명을 잘하는 자가 그 일의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다.

5. 사진을 찍어 보내도 설명을 못 하면 모른다. 육하원칙에 의해 설명해 줘야 된다.

6. 설명을 잘하는 자일수록 그 일의 더 큰 사명자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설명을 잘해 주고, 잘 가르쳐 주고, 잘 증거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명을 받은 자다.

8. 그 일의 주인이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못 한다.
9. 사진은 누구나 찍어 와도 설명은 아무나 못 한다.
10. 성경도 누구나 볼 수는 있어도,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설명을 못 한다.
11. 자기 인생 자기가 설명해야 된다.
1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사명자에게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게 하신다. 고로 사명자를 구분하게 하신다.
13. 주인공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14. 꿈도 설명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15. 자기 인생도 기도하여 깊이 깨닫고, 설명을 잘하기다.
16. 자기 인생을 봐도 근본을 알고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의 장단점을 찾지 못하여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을 고치지 못한다.
17. 자기 뇌도, 마음도, 육에 관한 것도 알고, 설명을 잘하여라.
18. 성경을 읽고서도 제대로 몰라서 설명을 못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지만 무용지물이다. 인생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인생을 귀히 쓴다.
19. 사람을 제대로 알기다. 제대로 설명해 주기다.
20. '전체'를 잘 설명해 줘도 '핵'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면, 그는 설명의 사명자가 되지 못한다.
21.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아는 단계다. 깨달음으로 아는 것은 자기 실력으로 아는 것이라서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 '힘'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다. 마치 누가 본 것을 전해서 듣는 것과 자기가 직접 보는 것이 다르듯 다르고,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지고 먹고 취하는 것이 다르듯 다르다. 고로 '깨달아라.' 했다.
22. 똑같은 글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깨달을 때 그제야 달리 보인다.
23.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깨달음으로 분별해라.
24. 겪어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25. 마음이 나쁘면,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없다.
26. 깨닫고 감동되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린다.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의 축복이다.
2. <해석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축복해 줄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해 주신다. 깨닫게

해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행하면, 삼위가 돕고 역사하신다.

3. <해석2> <신의 축복>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다.

4. <해석3> 성자는 인간의 뇌에 축복할 것을 넣어 주어 그것이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고,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5. <해석4> 성자의 축복은 ‘생각’으로 온다.

6. <해석5> 성자가 축복을 주려 하실 때는 가까이 와서 역사하시며 그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고 감동되어 그것을 행하게 해 주신다.

7. <해석6> 하나님의 축복은 ‘생각’으로 온다. * ‘생각의 축복이다’라는 말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축복을 해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 뇌에 축복할 것을 넣어 주시어 그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삼위가 깨닫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책임분담을 하여 행할 때, 삼위가 돕고 함께 하십니다. 고로 행함으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니, 그것을 더욱 온전히 행하게 되고, 그러므로 얻게 됩니다.

8. 지혜가 축복이다.

9. 아는 것이 축복이다.

10. 아는 것이 재물이다. 돈이다.

11. 삼위일체를 아는 만큼 영과 육이 축복이다.

12. 삼위일체를 아는 만큼 재물이다.

13.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14. 많이 깨닫는 자는 많이 축복을 받은 것이다.

15.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많이 깨닫도록 두뇌를 영적으로 개발하여 차원을 높여라! 그래야 신이 ‘생각’을 주면, 그 생각을 받을 수 있다.

16.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축복이 어디로 오느냐. ‘뇌’로 와서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신다.

17.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18.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 축복이다.

19. 자기에게 해당되는 성자의 생각이 자기 뇌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은 것이 성자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20. 전능하신 성자는 축복을 주실 때, 먼저 ‘생각’으로 주신다. 그것을 ‘실천’하면, 그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21. 성자는 새벽에 주실 축복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생각이 축복이다. 그것을 실천하여라.

22.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 축복을 받는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축복을 주실 때는... 첫째, ‘각 개인의 뇌’에 ‘합당한 생각’을 주어 그것이 생각나고 감동되어 실천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게 하신다. 둘째, 삼위일체가 ‘합당한 사람’을 보내어 삼위일체의 ‘합당한 말씀’을 해 주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실천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게 하신다.

24.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말씀’으로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25. 삼위일체의 깊은 축복은 삼위일체가 깨닫게 해 줘야 알지, 인간 스스로는 모른다. 고로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26. 육의 세상에 속한 것은 인생 일생이고,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은 영원하다.

27. 기도를 깊이 해야 성자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다음 잠언으로 연결하여 즉시 전하기)

28. 성자의 생각이 축복이다. (다음 잠언으로 연결하여 즉시 전하기)

29. 성자의 생각으로 살면,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 고로 성자의 생각이 자기 뇌로 와서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로 성자의 생각이 자기 뇌에 생각나 마음으로 깨달도록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30.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축복이다.

31. 죽음 속에서도 성자는 그 순간 ‘생각’으로 돕는다. 옆에서 성자가 어떻게 해야 산다고 생각나게 하신다. 옆에 수만 명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사는지 생각나게 해 주지 못하면, 필요 없다.

32. 굳은 뇌를 풀어 놔야 성자가 그때그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총명하게 생각나며 성자의 계시를 받는다.

33. 혼자 있다고 약하다 하지 말아라. 성자와 분체가 생각나게 해 주면, 수천 명이 옆에 있는 것보다 낫다.

34. 항상 ‘생각의 귀’를 기울여라. 성자에게 물어라. 그리고 대화해라. 성자와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통하게 된다.

35. 신은 옆에 있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하기가 100배 어렵다. 먼저 신을 부르고 묻고, 정신일도 해라. 그러면 신과 통하기 100배 쉽다. 분체의 영과 혼도 마찬가지다. 먼저 부르고 말해라. 그러면 통하기가 100배 쉽다. 먼저 부르고 말하기다. 이것이 <영계와 통하는 하나님의 1급 비밀>이다.

36. 영계의 비밀이 담긴 잠언 하나를 깨달으려 40년, 50년 걸린 것도 있다.

37. 주일말씀 한 번 듣고, 수요일말씀 한 번 듣고, 잠언 하나 듣는 것이 일반 교회에서 10000번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나은 것이 많다. 그러나 두뇌의 차원이 낮으니, 귀한 것을 모른다. 고로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자는 한탄하며 준다.

38. 어린아이에게 계속 10억, 100억을 주어 그것으로 먹고 입고 쓰게 해도, 또 더 달라고 한다. 섭리사에서도 그런 습관이 든 자들이 많다. 그들은 많이 줘도 소용없다. 가치를 모르고 받고 먹으니, 받아도 가치 없이 행하고 먹어도 가치 없이 행한다.

39. ‘생각의 축복이다.’ 이 하나의 잠언 계시를 전개하여 각종 잠언 1000개를 써도 못다 쓴다. 생활 속에 행하여 받아라.

40. ‘주’도 보고 맛고 같이 사는 자만 안다.

41. 잠언 한 개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면 ① 죽음에서 살게 되고, ② 가난에서 벗어나 잘살게 되고, ③ 사망에서 벗어나 지옥에 갈 자가 천국에 가게 되기도 한다. 고로 잠언 하나가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아니냐. ‘생각의 축복이다.’ 이 말씀은 네 달 동안 절식기도를 하며 조건을 쌓고 받은 말씀이다. 성자는 만 가지의 축복을 ‘생각’으로 주신다. 고로 ‘생각의 축복이다.’라는 잠언 하나는 일억 천만금 값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생각’으로 축복을 주시며, 또한 ‘말씀’을 주시어 알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것은 성약역사가 진행되는 1000년 동안 쓰여진다. 그러니 그 값이 얼마이겠느냐. 계산해 보아라. 선생은 매일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섭리역사를 펴 왔다. 그러나 합당해야만 ‘생각’을 주신다.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어떤 일을 시킬 때 그냥은 안 시킨다. 그 일을 시키기에 앞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일에 마음이 흥분되게 하여 마음이 가고 몸이 가서 행하게 하신다.

2.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깨닫게 하며 행하게 하신다.

3.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여행을 가려면, 먼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가고 싶게 한다. 이와 같이 성자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그 일에 대한 감동을 주고, 생각을 주고, 마음이 흥분되게 하고 같이 행하신다.

4. 봐야 될 것은 관심을 갖고 보도록 이끄시고, 들어야 될 것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해야 될 것은 말하도록 역사 하신다.

5. 사랑하는 남녀가 있을 때 둘 중의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으면, 먼저 사랑 이야기를 꺼내어 사랑이 생각나게 감동시키고 마음을 흥분시켜 사랑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신부들의 마음을 운전하신다. 곧 눈으로 봐야 될 것은 관심 갖고 보게 하시고, 귀로 들어야 될 것은 듣게 하시고, 말해야 될 것은 말의 감동·감화·생각·흥분으로 이끄시고, 그 후에 점차 몸으로 행하게 하며 같이 행하신다.

6. 자기 스스로 이성(理性)으로, 또 영성(靈性)으로 생각나고 흥분될 때도 있다. 그것이 성자의 생각인가 기도해 보고, 성자의 생각이 아니면 자기중심의 일이니 분별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날마다 하는 일마다 성자와 의논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7.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시동을 걸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시동을 건다.

8. 생각나고, 기억나고, 감동받고, 깨닫고, 흥분되었을 때 그 일을 해야 된다. 지나가면 글 한 편도, 잠언 하나도, 시 한 편도 못 쓴다. 전도도 못 한다. 작든지 크든지, 그때 그 순간 생각나서 ‘생각의 검’이 켜 있을 때 하는 것이다.

9.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생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흥분이 안 되면 옆에 있어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자가 옆에 계셔도 사랑의 생각이 없고, 감동이 없고, 흥분이 안 되면 서로 대화도 사랑도 안 해지는 것이다. 성경의 학개 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되게 하신다. ‘흥분되게 한다.’ 함은 ‘생각나게 한다. 감동되게 한다. 좋아서 생각이 집중되게 한다.’ 함이다.

10. <성자>는 흥분의 신이다. 곧 감동의 신이다. 생각의 신이다.

11. 생각났을 때, 감동됐을 때, 흥분됐을 때, 그 일을 속히 행해라!

12. 생각을 주고, 감동을 주고, 흥분시켜 줬는데도 안 하면, 그 일은 지나가고 만다.

13. ‘생각’은 달리는 차의 창밖 배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순간 순간 지나간다. 그때 그 순간이다.
14. 지능이 낮으면, 곤충한테도 당한다.
15. 지능이 낮으면, 짐승한테도 당하고 해를 받는다.
16. 지능이 낮으면, 지능이 높은 자와 이야기해도 귀가 있으니 들리기는 해서 고개만 끄덕이지, 깨닫지 못하여 그 행위를 못 한다.
17. 지능이 낮으면, 자기 행위의 시행착오를 잘한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고 크고, 바다같이 넓고 깊다. 삼위께 사랑의 인정을 받고 신이 되어 365일 100% 온전하게 행하며 삼위와 일체 되어 살아 봐야, 삼위의 생각이 얼마나 높고, 크고, 넓고, 깊은지 알게 된다.
19. 어린아이들은 지능이 낮으니, 그 행하는 것을 보아라. 기저귀를 차고도 좋아한다. 신앙의 어린아이들도 그러하다.
20.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말이 이해가 안 되어 오해를 하고 수수께끼처럼 생각했다. 커서 지능이 높아지면, 그제야 “그 말이 맞았구나!” 한다.
21.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자기 행위에 모순이 있는데도 좋아하며 거듭 행한다.
22. 어린아이 때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커서도 기저귀를 채워 주면 즉시 잡아당겨 집어 던져 버린다. 이와 같이 두뇌의 차원을 높여 낮은 차원에서 올라오면, 자기가 예전에 수준 낮게 하던 행위를 안 한다. 두뇌의 차원이 높아져 생각의 차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3. 두뇌의 차원이 높은 자가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의 행위를 보면,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것같이 확실히 보인다. 자기도 기저귀를 차 봐서 안다. 커서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나.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성자와 같이 못 산다.
24. 어린아이가 똥 걸레를 목에 걸고 좋아서 다니듯,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나이에 상관없이 수준 낮은 행위를 한다. 본인만 모르지, 아는 자는 겪어 봐서 안다. 절실히 깨닫고 고쳐라! 어서 커라! 차원 높여 올라와라! 올라오다 보면, 어느새 기저귀가 없어진다.
25. 혼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보면, 육의 차원 낮은 모습이 다 보인다. 다 큰 혼체가 다 벗고 다니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썩은 물에 목욕하고 다닌다. 그리고 썩은 물도 약수같이 맛있다고 짹짹 들이킨다.
26. 영계에서 혼체로 보면, 자기 육의 행위의 상태를 정확하게 본다.
27. 어떤 사람은 혼체가 짐승이 되어 살아간다. 그 육의 행위가 그렇다 함이다.
28. 어떤 혼체는 화장실에서 산다. 그 육의 행위가 그렇다 함이다.
29. 어떤 혼체는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산다. 그 육의 삶의 실상을 보여 준 것이다.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차가움>을 느끼는 자는 <따뜻함>도 느낀다.

2. <지옥>을 느끼는 자는 <천국>도 느낀다.
3. <고통>을 느끼는 자는 <기쁨>도 느낀다.
4. 뇌세포가 살아 있는 한, 한 가지 기능만 할 수는 없다. 가령 악한 것들은 느끼기 싫고 좋은 것들만 느끼고 싶어도 뇌가 살아 있는 한 보고 들으면 양쪽 다 느껴진다.
5. 악의 주관권을 떠나 아예 선의 세계로 가면, 악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어진다. 고로 뇌세포가 악 쪽으로는 작용을 못 하니, 악으로는 가동하지 않는 기계와 같을 것이다.
6. 뇌 자체에서 이성(異性)의 생각과 각종 불의한 생각을 아예 안 하면, 뇌는 그 면으로는 굳어서 발달이 안 된다. 뇌를 선한 생각으로 다 쓰면, 100% 선(善)만 생산하는 뇌 공장이 된다.
7.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뇌 공장에서 거짓말 기계가 가동되어 운영한다.
8.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뇌의 거짓말 하는 기계가 참말을 하는 기계로 바뀌어 그 뇌에서는 거짓말을 못 한다.
9. “나는 거짓말을 못 한다.” 하며 정말 거짓말을 못 하는 사람은 그 뇌에 거짓말 하는 공장이 없어지고 참말만 하는 공장만 가동되어 돌아가기 때문이다.
10. 이성 타락, 불의한 행위, 자위행위, 부끄러운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은 그 뇌를 그쪽으로 쓰지 않아 뇌가 아예 그쪽으로는 가동되지 않는다. 그 뇌는 참된 사랑, 합당한 사랑, 성자와 영적 사랑, 뇌 사랑 공장만 가동되어 돌아간다.
11. <뇌 체질 개선>도 <음식 체질 개선>과 같다.
12. 음식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어서 먹든지, 음식을 신선하게 찜박하게 만들어 즉석에서 계속 먹든지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계속 먹으면 그 맛이 세포에 절어서 그 맛과 음식으로 체질이 바뀐다.
13. 음식도, 운동도, 어떤 일도 70일 이상 반복해서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체질이 변화된다. <뇌 체질 변화>도 그러하다.
14. 음식도 만드는 방법을 바꿔서 그 음식 맛이 들 때까지 먹으면, 그 맛 체질로 바뀐다. 이때 뇌도 몸도 1단계 바뀐 것이다.
15. 뇌 체질도 한동안 행해야 바뀐다.
16. 뇌 체질을 좋게 바꿔 놓으면 100배, 1000배 편하고, 사고도 안 내고, 만사에 좋다.
17. 자기 뇌와 몸을 건강 체질로 바꿔 놓으면, 평소에도 스스로 건강한 생각과 행위가 나온다.
18. 뇌를 기도 체질로 완전히 바꿔 놓으면, 별식 먹는 습관이 되어 안 먹고는 못 견디듯, 때마다 꼭꼭 기도가 해진다.
19. <성자와 대화 체질>로 만들고, <성자와 사랑 체질>로 만들고, <말씀 체질>로 만들고, <실천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생각도 하기 전에 손발이 먼저 가서 행해진다.
20. 체질을 만들었다는 것은 수동식에서 자동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고로 자동적으로 뇌가 작동되고 몸과 손과 발이 가서 행해진다.

21. 축구선수의 발은 볼을 차는 체질이 되어서 감각이 뛰어나다. 고로 볼이 오면, 자동적으로 발의 방향 각도가 나와 그 자세로 볼이 차진다. 뇌도 몸도 생각도 그러하다.
22. 모든 것이 체질이 되어서 생활하며 살아야 삶이 쉽다. 체질이 안 되면 못 하고, 해도 10배 더 힘들게 한다.
23. 새벽에 일찍 일어나 봐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체질이 안 된 사람이 해 봐라. 옆에서 그렇게 깨워도 못 일어난다. 일어나기는 해도 힘들 때는 3시간 걸려서 일어나진다.
24. 처음 등반, 처음 수영, 처음 축구, 처음 먼 길 걷기, 처음 청중 강연, 처음 성자와 대화, 처음 주 뜻대로 실천 등 '처음'은 10배, 100배 힘들다. 해도 온전히 잘 못 한다.
25. 반복해서 하다 보면 체질이 된다. 체질이 되어서 하면 산이 높을수록 등반을 잘하고, 수영도 축구도 할수록 더 잘하고, 청중 강연도 사람이 많을수록 잘하고, 걸을수록 더 멀리 잘 걷고, 행할수록 더 잘 행해진다. 이는 '뇌와 몸'이 풀려서 더 잘하게 되는 것이다.
26. '뇌의 전개체'는 '몸'이다. 뇌가 풀리면 몸이 풀린다.
27. 오래 걷는 사람은 발바닥에 굳은살이 배고, 그것이 체질로 바뀌어서 걸을수록 시원하고 안마도 되어 좋아한다. 뇌 체질, 몸 체질, 마음 체질도 그러하다.
28. 발바닥에 굳은살이 체질이 되듯, 뇌도 몸도 마음도 체질이 되면 100선, 200선, 300선 휴거를 거뜰히 이룬다.
29. 체질이 되어 행하면, 휴거되는 것이 하루에 밥을 세 끼 먹듯 거뜰하고, 여름에 팔빙수 한 그릇 먹듯 간단하다.
30. 체질을 만들어 놓으니, 전에 하던 대로는 안 됐다.
31. 부지런한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게으르게 살아지지 않는다.
32. 기도하는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기도 안 하고는 못 견딘다.
33. 사랑도 이성도 단단한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남자나 여자가 속이 다 보이게 옷을 입고 다녀도 뇌도 몸도 마음도 이성으로 가동이 안 된다. 뇌와 몸과 마음은 체질이 된 대로 돌아간다.
34. 뇌 체질이 좋게 바뀌면, 전에 자기가 차원 낮게 하던 것들이 눈에 띄게 어린아이가 행한 것같이 보인다.
35. 뇌 체질을 차원 높게 만들면, 마치 글을 써 놓고 교정해 놓고 보면 처음에 쓴 것이 너무 모순되게 느껴져 즉시 찢어 없애듯, 자기가 전에 하던 차원 낮은 행위를 즉시 버리고 뇌의 차원을 높이고 행한 것을 좋아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36. 마음으로는 자기를 못 다스린다. 뇌와 몸 체질을 만들어 놓고 마음으로 다스려라. 그러면 마치 기구를 만든 대로 쓰듯 쉽게 행해진다.
37. 칼을 만들어야 칼로 쓰기 쉽듯, 뇌도 몸도 만들어 놔야 사용하기 쉽다.
38. 사람도 물건도 만들어 놓고 써야 원하는 대로 써진다.
39. 뇌도 체질을 좋게 만들어 놓고 써야 원하는 대로 써진다.
40. 자기 몸도 운동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건강하게 살아진다.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병든 몸으

로 쓰는데 건강하게 써지나.

41. 궁궐을 지어 놓고 궁궐같이 살아야지, 초가집을 만들어 놓고 마음만 궁궐같이 마음먹고 산다고 해서 궁궐같이 살아지나.

42. 사람들은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하며, 마음 편해한다. 이 같은 철학은 관념 철학이다. 마음만 편한 체질이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실제로 편해야 된다. 배가 고프는데 마음만 배부르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때가 되면 배고프고 속이 쓰려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살아야 된다.

43. 뇌 체질을 아예 좋게 만들어 살면, 마음도 몸도 인생도 편하다.

44. 너의 뇌와 몸과 마음을 건강 체질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휴거된 자는 ‘육’도 세상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되어 마치 새 집을 얻고 옛 집을 버리듯 세상 유혹과 세상 사랑에서 벗어나서 산다.

2. 마음에 안 들던 애인과 헤어지고 100% 마음에 드는 애인과 살면, 옛 것은 기억도 안 나는 것이다. 휴거되면 옛날 기성 세계의 삶도, 옛날 세상 삶도, 휴거되기 전의 삶도 기억도 안 난다.

3. 과거에 미련을 갖는 자는 새 시대를 온전히 얻지 못한다. 이는 새 시대 성자와 구원자를 온전히 몰라서다.

4. 새 애인을 만나 결혼해서 잘 사는 자가 옛날에 사랑하던 자를 다시 만나고 와서 그 사람에 대해 말하며 미련이 남았다고 했다. 왜 그럴까? 아직 새 배우자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새롭게 만난 사람이 그 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환경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사랑도 비교가 안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배우지 않았기에 모르니 그러는 것이다. 배우고 알면 ‘내가 저 같은 사람의 배우자가 되기에 자격이 안 되는데, 가다가 내가 떨어지거나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쩌나?’ 하며 스스로 염려하게 된다.

5. 미련한 자는 메시아가 자기 마음이 안 들을까 봐 걱정한다.

6.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자기가 메시아의 마음에 안 들을까 봐 걱정한다.

7. 자기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주는 세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단이 자전거를 못 따라올까 걱정한다. / 주 앞에 모두 그러하다.

8. 어떤 부모가 시골 상점만 보고 크던 어린아이의 차원을 높여 주려고, 아이를 데리고 도시 백화점과 슈퍼마켓을 구경시켜 주러 갔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 가면서 ‘먼 곳에 가서 동네 상점보다 못 한 곳을 구경 가면 어떻게 하지?’ 하며, 동네 상점만 생각하며 따라갔다. / 주 앞에 모두 그러하다.

9. 부모는 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알고, 도시를 구경시켜 주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봐 걱정되어 먼저 도시 변두리에 내려서 보여 주다가 본인이 “더 큰 데 보여 줘.” 하는 대로 조금씩 차원 높여 도시 중심으로 가서 더 좋은 곳을 보여 주려 했다. / 이 시대도 그러하다. 주를 대하는 대로, 성자를 대하는 대로 하늘의 것을 보여 주며 행하신다.

10. 자기 차원으로 주를 보면, 주는 그 사람이 벗어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 상태로만 대해 준다.

11. 주는 주를 대하는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그릇대로 대해 준다. 역시 공의롭다.

12. 주는 밥상 위의 멸치를 잘라 먹으라고 전쟁터의 칼을 주지 않는다. 멸치를 잘라 먹으려 하는 자가 칼을 원하면

“네 손으로 잘라 먹어라.” 한다.

13. 존재 대상이다.

14. 알고 대하는 대로다.

15. 댐에 물이 가득 차 만수가 되었어도 수문을 1cm만 열면 물이 1cm만큼만 나간다. 성자도 주도 사람이 자기 마음 문을 여는 대로 대해 주고 역사해 준다.

16. 주를 대할 줄 모르는 자는 서쪽에서 해 뜨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안 뜨니 실망하고 가는 자와 같다.

17. 시간이 맞는 시계의 시간에 맞춰서 가듯이, 성자와 그 육의 생각에 맞추면서 가라. 너라는 뇌 시계가 고장 나면 못 맞춰 간다.

18. 사람은 둘 중의 더 좋고 나은 쪽을 택한다.

19. 육의 것과 영의 것 중에서 더 좋은 쪽을 택한다.

20. <영의 것>은 ‘영원’하고, <육의 것>은 ‘순간’이다. 고로 서로 비교가 안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육의 것을 택하는 이유는 영의 것을 조금만 행하니 다 못 봐서 모르기 때문이다 .

21. 성자와 그 육이 되는 자의 사랑도 조금만 아는 자는 자기가 평소에 전심을 다하며 사랑한 육의 것에 기울어져 살아간다.

22.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한 자가 선택한 대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선택’에는 꼭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잘 선택해라.

23. <영의 것>을 택하면, 차원이 높아서 육의 것도 영의 것도 다 있다. <육의 것>을 택하면, 차원이 낮아서 영의 것은 없고 육의 것만 있다.

24. <영의 것>이라고 해서 마음, 정신, 혼, 영만 생각하지 말아라. 육신도 영적으로 사용하면, 신령한 육의 몸이 된다.

25. 육의 몸도 성자의 뜻대로 사용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서 보이는 성자의 몸이다.

26. 네 ‘육’과 ‘혼’과 ‘영’이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

27. 육을 세상에 뺀 자는 성자가 그 마음과 혼과 영만 사랑의 대상으로 쓰게 된다. 육을 뺐겼다는 것은 자기 몸을 성자의 뜻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28. 육의 사랑도 성자의 뜻대로 하면, 그 몸은 육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랑을 하게 된다.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100% 알고 행하여 인간으로서 신이 돼야 한다.

2. 생각을 놀리면, 뇌가 굳는다.

3. 뇌는 무한대의 물질이다. 하지만 놀리면, 자체 살아 있는 것으로만 존재하지 그 능력은 써 먹지 못한다.

4. 뇌는 몸과 같다. 뇌는 무한한 일을 하고, 각종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놀리면, 살아 있는 것으로만 존재한다.
5. 몸을 축소하면, 뇌다. 뇌를 확대하면, 보이는 몸이다. 보이는 몸은 안 보이는 뇌와 함께 일한다.
6. 몸을 통해서 뇌의 움직임을 보고, 말하는 것을 통해 뇌의 움직임을 보아라.
7. 몸도 만들기에 달렸듯이, 뇌도 만들기에 달렸다.
8. 뇌가 어떤 면에서 굳어 있으면, 그 방면은 전혀 모른다.
9. 뇌와 마음이 흥분됐을 때 판단하면, 과하게 판단하게 된다.
10. 뇌와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울 때 판단하면, 모자라게 판단하게 된다.
11. 기억력이 떨어진 뇌는 눈으로 볼 때만 순간 기억하고 잊어버린다. 고로 봤을 때 기록해야 평생 남게 된다.
12. 뇌는 발견해 주는 역할을 하니, 뇌에 생각이 떠오르는 즉시 마치 손으로 알밤을 주워 그릇에 담고 보화를 주워 챙기듯, 펜으로 번개같이 기록해야 된다.
13. 뇌에서 기억할 때는 평생 기억할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한 것이 일순간 사라져 평생 기억이 안 나기도 한다.
14. 뇌에서 기억할 때는 생생해도 정한 시간이 되면 순간 사라진다.
15. <뇌로 생각>, <몸으로 행동>, <손으로 기록>은 항상 같이 해야 된다.
16. 뇌는 시동이 걸려서 돌아가면, 그때 깊은 것들이 계속 발생하여 떠오른다.
17. 뇌 자체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첫째, 혼체가 뇌에 연결되어 혼이 보고 느낀 높은 차원의 것을 뇌에 입력하기에 뇌에서 깊은 생각들이 나오기도 한다. 둘째, 자기 영이 혼에게 깊은 것을 주면 혼이 그것을 받고 자기 뇌에 넣어 주어 육이 실전한다. 그로 인해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고, 얻을 것을 얻고, 유익하게 된다.
18. 육이 깨닫고 자기 혼과 교통해야 영적인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게 된다.
19. 자기 뇌에서 떠오른 것도 육의 것과 영의 것은 본질이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 ‘영’에게 깊은 것을 전달하고, 우리 영은 자기 ‘혼’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혼은 자기 ‘뇌’에 그것을 입력시켜 ‘육’이 행하게 한다. 어느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 ‘뇌’에 직접 전달할 것을 넣어 주어 생각나게 하여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20. 우리 뇌에는 하나님과 성자만 쓰시는 선이 있다. 그 통로는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한다. 사탄도 못 쓴다. 고로 ‘통화 중’이 없어서, 하나님과 성자는 어느 때나 상관없이 쓰신다.
21. 인간의 뇌에는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는 선이 있다. 고로 정신일도 하면 그 선으로 하나님과 성자와 통하게 된다.
22. 뇌는 눈과 같다. 눈이 어떤 것을 쳐다볼 때만 그것이 보인다. 다른 것에 한 눈 팔면 이전 것이 안 보인다. 뇌라는 눈도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만 그것이 생각난다.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 순간 다른 생각을 하면, 생각하던 것이 흐려지면서 생각이 돌아가 더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23. 뇌는 ‘생각’으로 본다. 가령 뇌가 어떤 그림을 생각하면, ‘생각’이라는 붓으로 그 그림을 그린다. 다 그리면, 뇌에 그 그림이 보인다. 그렇게 뇌에 저장돼 있는 것을 ‘육’이 그려내게 된다.
24. ‘뇌’로 어떤 시나 글이나 잠언을 생각하면 떠오른다. 그리고 글이 뇌에 떠올라 보이기도 한다. 뇌에 있는 글을 ‘육의 손’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25.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 자기 ‘혼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자기 ‘뇌’에 연결되는데, 혼이 그것을 자기 ‘육’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혼체 혼자 쳐다보기도 한다.
26. 뇌 자체에서 녹화된 것이 영상화되어 보이기도 하고, 뇌에 녹화된 것이 아닌데 그때 생각함으로 영상화되어 보이기도 한다.
27. 거리에 상관없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혼’으로 보기도 하고, ‘뇌’로 그 실상을 잡아서 보기도 한다.
28. 뇌가 총명하고 정신일도 되면, 보고 싶은 사람도 영적 현상으로 보게 되기도 한다.
29. 기도하고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성자가 허락하시면,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 선영계, 낙원 등 각종 종교인들이 그 차원대로 가는 영계를 보고 천국도 보게 된다. 자기 혼이 가서 보기도 하고, 자기 영이 가서 보기도 한다. 자기 혼이나 영이 영계를 보면, 자기 육과 일체 되어 육이 알게 되기도 한다.
3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만 신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인간’을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수천 가지를 써 먹어 봐야 왜 인간이 신비한지 알게 된다. 고로 육, 뇌, 마음, 혼, 영을 다 사용해야 된다. 육신도 신비한데, 혼과 영은 오죽하겠느냐.
31. 뇌는 어떤 것을 암기하면 정한 시간까지는 기억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기억을 잊어버린다. 뇌는 집중할 때만 외우고 기억한다.
32. 뇌에 어떤 것을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평소에 말하듯이 반복해서 입력해야 된다. 잊어버리기 전에 입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손으로 반복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그것에만 집중해야 된다. 매일 반복하면 잊어버리지 않게 된다.
33. 누구든지 공부할 때 외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매일 수십 번씩 보면서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 그래서 뇌가 완전히 암기하게 해야 된다.
34. 암기하기, 반복하기, 쉬지 않고 연속하기다.
35. 뇌는 집중해야 기능이 좋아진다. 뇌는 이해해야 외워진다.
36. 주민등록번호를 외울 때도 이해하면 잘 외워진다.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년도와 자기 생일은 외우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앞 번호는 자기가 태어난 년도와 생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암기하면, 금방 외우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뒤 번호를 외우면 된다.
37. 외울 때는 암기 원리가 있다. 말씀을 강의해 주고 듣는 자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말씀을 이야기 식으로 해 주거나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연결하여 이해시키면 된다. 그러면 자기 생활 속의 단어이기에 늘 안 잊어버리게 된다.

<2013년 10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의 축복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축복해 줄 것이 있으면, 먼저 생각나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주신다.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이 삼위일체의 축복이다.
3. <성자의 말씀>은 ‘생각’으로 깨달아지면서 온다.
4. <성자의 축복>은 ‘생각’으로 온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생들에게 각종 축복을 주실 때, 각자의 ‘뇌’에 축복할 것을 입력해 주어 그것이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감동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생각난 그것을 ‘실천’하면, 축복을 얻게 하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주>와 <지구>와, <천국>과 <낙원>과 그 외의 <영계>를 창조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훤히 다 아신다. 고로 그것을 인간이 알고 행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7. 모르는 인생들에게는 ‘아는 것이 축복’이다.
8. 인간이 깨달은 것을 행할 때 삼위일체는 또 지혜로, 각종 방법으로, 힘과 능력으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행하는 자에게 자신감을 주고, 담대한 마음을 주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
9. 하고자 하는 생각을 받고도 하기 싫어할 때는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 하게 해 주시고, 성자는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주시며 그 몸을 쓰고 같이 행해 주시며 <축복을 받는 책임>을 하게 하신다.
10. 인간은 육을 가지고 육의 세상에서 사니, 생활 가운데서 항상 <자기 육의 생각>이 먼저 온다.
11. <육의 생각> 위에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다. 그 위에 <성자의 생각>이다.
12. 자기중심적 생각을 버리고 성자의 생각에 집중해야 때마다 최고로 합당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성자의 생각을 받아 ‘뇌’에 <생각의 축복>을 받게 된다.
13. 어떻게 해야 신의 축복을 받는지 완벽하게 배워라. 그래야 신이 축복을 줘도 ‘아~ 이같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알고 받게 된다. 어떻게 신의 축복을 받는지 모르면 ‘내 생각인가? 살다 보니 신경 쓰니까 생각나는 것인가?’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14. 성자를 생각할 때, 성자와 대화하며 기도할 때, 성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또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성자가 주시는 생각이 선연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마치 자기가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나듯, 그 한 가지 생각만 떠오른다.
15. 어느 때는 번뜩 번개처럼 생각이 떠오르고, 어느 때는 잊어버렸던 꿈이 생각나듯 아련히 생각이 나고, 어느 때는 영감으로 번쩍 생각이 스쳐 온다. 생각이나 영감이 오면, 성자를 부르며 묻고 확인해라.
16.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만물을 보아라. 네 생각을 보아라. 네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보아라.
17. 생각이 안 날 때는 <육적>으로는 ‘암기’해라. <영적>으로는 성자에게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생각이 축복이다.
18. 성자가 상(上) 차원의 생각을 주시며 축복해 주셔도 우리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못 받게 된다.
19. 자기 <두뇌의 차원>은 ‘자기 육의 모든 행위를 기준’하여 올라간다. 고로 신앙생활, 기도, 말씀, 영광, 감사, 화평, 전도, 관리, 강의, 성자 사랑, 부지런함, 열심, 성령의 은혜, 각종 가치성, 성자 모심과 섬김 등 모두 다 잘해야 된다.

그래야 평균적으로 상(上) 차원에서 살기에 성자가 상(上) 차원급 축복의 생각을 주신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생각의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은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니, ‘뇌’로 받는 것이다. 고로 생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 생각이 죽음의 잠을 자면, 축복을 줘도 못 받는다.

21. 생각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으려면, 늘 성자와 그 분체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정신·생각이 집중되어 성자가 분체를 통해서 주는 말들을 받는다.

22. 성자는 첫째, 분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을 주고, ‘편지’를 통해서도 축복을 준다. 둘째, ‘각종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준다. 셋째, 우리 ‘뇌’에 합당한 생각을 주며 축복을 준다.

23. 인간의 뇌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만 통하는 ‘전용선’이 있다. 곧 ‘영적 뇌’다. 전화도 전용 번호가 있어서, 전용 번호로는 아무 때나 수시로 통한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도 ‘전용선인 영적 뇌’를 통해서 제재 받지 않고 언제나 <생각>을 준다.

24. 그 전용선은 사탄이 모르기에 사탄은 통할 수가 없다. 사탄은 육적 뇌에 자기 생각을 준다.

25. 두뇌의 차원이 높고 영적이어야 신령하여 생각이 깨어 있어 착오 없이 삼위일체의 생각을 받게 된다. 고로 기도의 프로가 되도록 평소에 기도 생활을 삶의 기본으로 해야 된다.

26. 밥 먹는 때가 됐는데 안 먹으면 못 견디듯, 잠잘 때가 됐는데 안 자면 못 견디듯, 기도, 감사생활, 생명 관리, 말씀으로 주 증거, 삼위일체와 분체 사랑, 형제와 화평하기를 안 하면 못 견디도록 뇌 체질, 마음 체질, 몸 체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체질이 안 되면 하다가 말게 되고, 하기도 싫다. 이 모든 것을 항상 해야 생각이 살아 있게 된다. 고로 성자가 생각의 축복을 줄 때 즉시 받게 된다.

27. 모든 것은 체계 있게, 질서 있게, 한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임시만 해서는 순간 위기만 모면하게 된다.

28. ‘휴거의 영’이 되어야 성자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 임시로 잠깐 하고 말아서 안 된다. 계획적으로 성자와 분체와 함께 해야 된다. 그것만이 <완전>이다. 완전하게 해야 ‘휴거의 영’이 된다.

29. 매일 <휴거의 삶>을 살아라. 기도, 감사생활, 생명 관리, 말씀으로 주 증거, 회개, 삼위일체와 분체 사랑, 형제와의 화평 등 모든 것을 임시로 잠깐 하다 말지 말고, 계획적으로 하여라.

30. <휴거>는 망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도 아니고,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의 전설처럼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실제로 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말씀을 행하며 휴거의 삶을 살면서, 성자와 사랑 일체 되면 휴거된다. 이 생각의 축복을 받아라!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행하여라!

31. ‘영’으로는 그 차원이 너무 높아서 자기 상태를 못 보니, ‘혼’으로 자기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자기를 신령하게 만들어라.

32. 삼위가 지상의 인간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휴거의 축복>이다. <휴거의 축복>은 지구 전체를 받는 것보다 더 크다.

33. <휴거>는 이 시대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곧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자와 분체를 ‘사랑’함으로 <휴거>가 이루어진다.

34. 분체는 성자의 육이다. 고로 그와 일체 돼야 휴거된다. 돌감나무는 참감나무와 일체 돼야 참감을 열듯이, 분체와

일체 돼야 성자의 ‘말씀’과 ‘사랑’과 ‘생각의 축복’이 전달되어 차올라 성자와 일체 된다.

35. ‘일체’란, 100% 흔들림이 없고, 100% 가치를 알고 행하는 것이다.

36. 분체에 대해 100% 흔들림이 없고, 분체의 가치를 100% 알고 행하는 자가 분체와 일체 된 자로서 성자와도 일체 된 자다.

37. 가치를 알면, 못 행할 것도 행하게 된다.

3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축복을 주지 않을 자에게는 아예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준다. 고로 <생각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는 자기 생각으로 행하여 적게 하고 적게 얻고 끝난다.

39. 삼위일체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생각의 축복>을 주신다. 고로 행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감동되어 깨달아지면,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즉시 행해라.

40. 사탄이 인간의 뇌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주어 그것이 생각나게 하여 행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 고로 항상 기도하여 성자에게 묻고, 분체에게도 확인해라.

41. 자기 의지, 자기중심,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성자의 축복을 막는 생각이다.

42. 삼위일체는 때마다 작고 큰 축복을 준다. 큰 것은 큰 여건과 조건이 돼야 준다.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열렬하여라.

<2013년 10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사랑>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하며 같이 살고, 그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랑하며 같이 살려고 창조했다. 이것을 100% 알려면,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창조 목적대로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사는 자만 안다.

2. 사명을 맡은 자들아. 목회를 하거나 각종 사명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재미 붙이며 와스디같이 살지 말아라. 왕비는 왕과 일체다. 성자와 그 분체를 항상 중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와스디가 왕으로부터 버림받듯이, 와스디 꼴을 당한다.

3. 아름답고 예쁜 꿩은 하늘을 날고 솔밭을 누비며 큰 대지를 정원으로 쓰며 화려하게 산다. 그런데 사냥꾼이 독약을 묻힌 하찮은 콩 하나를 갖다 주며 유혹하면, 그것을 먹고 죽어 화려한 삶이 끝난다. 섭리 인생도 그러하다. 섭리 인생이 귀한지 모르고 사탄의 꾀에 빠져 콩 하나만 한 별것도 아닌 것에, 마치 독약과 같은 세상과 사랑에 유혹되어 천법과 인법을 어기고 섭리 인생을 끝낸다.

4. 산을 누비며 드넓은 들판을 정원으로 삼고 뛰놀던 노루와 사슴이 사냥꾼이 놓은 하찮은 올무에 걸려 끝난다. 인생들도 그러하다. 자기 주관권과 온 지구 세상을 정원으로 쓰던 자들도 사망의 올무에 걸리면,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인생도 끝나고 영의 영원한 삶도 끝난다.

5. 천하를 호령하며 사는 자도 그 하찮은 번데기만 한 총알 하나 맞으면 끝난다. 인생도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하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지혜로 세상과 사랑을 다스리고 네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라.

6. 아름답고 예쁘고 멋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이성의 덫에 걸려, 혹은 실 가닥 같은 병에 걸려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서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

7.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인생’인데, 하찮은 만물로 인해 억울하게 죽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육은 일생 동안, 영은 영원히’ 삼위일체와 함께 살아라.

8.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너무도 하찮은 것에 걸려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몸부림쳤다. 그러니 이제 그것들을 모두 걷어치우고 살아라. 걷어치우고 살라는 말은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리라는 말이다.

9. 전능자 하나님, 사랑의 성자, 감동의 성령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살아라.

10. 욕적으로 만족을 느끼며 행복하게 사는 인생은 지속되지 않는다. 아무리 욕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인생은 늙고 병들게 된다. 욕적으로 남는 것은 '욕의 몸'이니, 욕이 원 없이 만족과 행복과 사랑을 누리면 욕은 늙어 간다. 이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 고로 욕만을 위해 살면 남는 것이 없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살면, 욕적으로도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행복하다. 또한 자기 영이 변화되어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면 욕은 욕대로, 영은 영대로 낙을 누리며 살고, 삼위일체가 욕신이 행하는 것마다 구상을 주어 행함으로 얻게 하시니, 그것을 창조주와 같이 쓰며 산다. 고로 영원한 행복이다.

11. 어떤 사람은 '산'을 가지고 놀다가 인생 끝나고, 어떤 사람은 '집과 정원'을 가지고 놀다가 인생 끝나고, 어떤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여 주인의 산과 집과 정원을 같이 쓰면서 즐기면서 산다. 그리고 욕이 죽어도 영이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12. 자기 돈을 주고 귀한 것을 사서 제 것으로 삼아 보람을 누리며 평생 쓰며 그것이 다 닳아 없어지기까지 써도, 많은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먹어도, 산과 돌과 나무가 다 닳아 없어지기까지 쓰며 살아도, '욕'이 늙어 죽으면 다 끝나니 허무하다. 그러니 과거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산 것이 무슨 소용이나. 한때 잘산 것으로 만족했다 하느냐. 지금 네 영이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데, 과거에 행복했던 것으로 만족하다 하느냐. 미리 지옥을 알고, 그곳만은 가지 말아라. 세상에서 욕이 살 때 창조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성자를 사랑하며 구원받고, 성령을 알고 천모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라. 감동으로 살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마음과 일체 되어 그 몸이 되어 살라는 말이다. 살아 본 자만 안다.

13.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제대로 모르고 살아도, 예수를 안 믿고 살아도, 예수를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도 큰소리 뽕뽕 치며 "나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하는 자들아. 너희 앞에 캄캄한 날들이 닥쳐온다. 영계에서 제대로 보아라. 삼위일체는 모두에게 보여 주며 밝히지 않으신다. 자기 책임과 실력껏 보고 아는 자만이 알고 벗어난다.

14.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정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자에게만 조금씩 근본을 알려 주시고, 행하는 만큼만 보여 주신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자기 자유의지다. 그러나 자유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자기 욕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기 영을 지옥, 혹은 천국, 혹은 낙원, 혹은 선영계로 보낸다.

15. 네 달 동안 식음을 폐하며 살아도 잘 먹고 잘 입고 산 사람과 비교하면 별 표가 안 난다. 그러나 네 달 동안 식음을 폐하며 더 깊이 기도하면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고, 더 차원을 높여 배우고, 전심으로 행한 것은 마치 보화 덩이 산을 얻은 것같이 표가 나게 얻어 '욕 일생 동안, 영 영원히' 쓰게 되었다. 내게도 타인에게도 영원한 도움을 주는 것들을 얻었다. 먹는 것이 그리도 귀하냐. 입는 것이 그리도 귀하냐. 자는 것이 그리도 귀하냐. 돈이 그리도 귀하냐. 적당히 하고 영원한 것을 얻어라.

16.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신다.

17. 자기 '영'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단계까지 만들고 구원한 자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부러운 자다.

18. 예전에 호텔 400개를 가지고 있는 호텔의 왕을 만났다.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나이는 80세가 넘었다. 그는 자기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 놓고, 문을 금으로 크게 만들어 놓고 살았다. 그는 자기 부인과 함께 세계에서 사귀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365일 집에서 파티를 열어 식사를 대접하며 살았다. 그것이 삶의 보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허리에 병이 걸려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집에는 방이 100개 가까이 있었고, 차고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차 30대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타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늙어서 차를 타고 다니고 싶지 않다 했고, 허리가 아프니 차를 타는 것이 고통이라고 했다. 욕적으로 만들어서 누리면 얼마나 누리

겠느냐. 영혼을 만들어 영이 그같이 누려야 영원히 누린다. 육은 세상에서 소나무만큼도 오래 못 산다. 육은 소나무 생명의 10분의 1만큼도 못 산다. 그것을 알고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19. 하루 같은 인생살이 반복해도 그리도 모르느냐.

20. 인생 모두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께 투자해라. 그러면 영으로 영원히 받고, 영의 영광이 된다. 영의 부귀와 명예와 사랑이 하늘같이 쌓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삶을 살아라. 지상의 것은 적당히 합당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는 만큼, 허용하는 것만큼만 먹고 마시고 쓰고 만들며 살면 된다.

21. 하루를 인생 일생으로 보자. 하루를 가지고 자기 애인과 사는 자가 있다 하자. 하루 종일 일만 많이 하고, 돈만 많이 벌고, 무엇을 만들기만 하면 뭐하나. 자기 애인과 같이 먹고 즐기고 사랑하는 시간이 없으니 보람 없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고, 무엇을 만들다가 해가 지니, 먹을 것을 못 먹고 그냥 자야 한다. 해 놓은 것도 못다 쓰고 그냥 옆에 미뤄 놓고 죽음의 잠을 맞게 된다. <잠>은 ‘죽음’으로 비유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애인’으로 비유했다. 인생들은 거의 이같이 산다.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뇌>에는 ‘신경’과 ‘신경 액’이 있다.

2. <몸>에도 ‘신경 줄’이 있고, ‘신경 액 성분’이 있다.

3.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접하고,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뇌의 신경과 신경 액도 그에 해당되게 움직인다.

4. <몸>에 ‘신경 줄’이 없는 살 속에는 ‘신경 액’이 통한다.

5. <척추>에도 ‘신경 줄’이 있고 ‘신경 액’이 있다. <신경 액>에는 물 성분 같은 신경 액도 있고, 진한 신경 액도 있다. 척추 속의 신경은 두부같이 되어 있다. ‘선’으로 된 신경이 있고, ‘액’으로 된 신경이 있다. 살 자체가 말초신경처럼 예민하게 체질이 된 곳도 있다. 그곳은 살만 자극해도 신경처럼 자극적으로 느낀다.

6. 자기를 ‘의’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기다.

7. 놀지 말고, 자기를 성자의 대상체로 만들어라.

8. 성자와 그 분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를 만들면, 평생 그 차원으로 귀히 쓰여진다.

9. 자기의 온전함을 위해 하루하루 자기를 만들면서 살면, 자기를 완성시킨 후에 쓰여질 때는 상상도 못 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10. 어떤 한 사람이 사막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하루하루 땅을 팠다. 30일을 팠더니 사막 땅에서 물이 나왔다. 그 물을 파니, 10억이 되었다. 30일 동안 샘을 파는 수고로 10억을 벌었으니, 이 사람은 하루에 약 3000만 원씩 번 셈이 된다.

11. 자기를 만들 때는 힘들어도, 완성하고 쓰여질 때는 엄청나게 유익이 된다. 만들 때는 하루에 1원도 못 벌었어도, 만든 다음에는 1분에 1억을 벌기도 한다. 고로 만드느라 자는 희망으로 만들어라.

12.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만들어라. 만들 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실상 과정 중에 영적으로 하루에 수십조씩 번 것이 된다. 깨닫지 못하나. 왜 더디 깨달느냐. 왜 계산을 못 하느냐.

13.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욕을 가지고 성자와 메시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 혼과 영을 만들어 휴거시켰다 하자.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 때는 7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걸렸다고 하자. 그 영이 천국의 황금성에서 빌딩과 황금 지역을 얻고 사는데, 그 값이 지구를 판 값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자기 영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1원도 못 벌었어도,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루에 수십조씩 번 것이 된다.

14. 저마다 자기 욕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이 휴거되게 만들어서 천국에 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하루에 일억 천만금씩 번 자가 된다.

15.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행하니, 천문학적인 가치를 얻게 되었다.

16. 선생도 시대 말씀으로 나를 만들 때 21년 걸렸다. 그것을 가지고 2012년까지 35년 동안 성자와 함께 섭리 역사를 펴 왔다. 만들 때 21년, 역사를 펴 때 35년, 총 56년 걸렸다. 그러나 세계로 뻗어 나간 섭리 역사를 보아라. 시대 구원을 받은 자들의 값은 수백조가 된다.

17. 선생도 나를 만들 때는 매일 고통과 눈물겨운 날이었다. 만들 때는 하루 종일 수고해도 1원도 얻지 못했다. 먼저 섭리 역사를 펴기 전에 21년 동안 1차로 나를 만들었다. 그것을 가지고 섭리 역사를 펴면서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5년 동안 시대 말씀을 전하며 2차로 또 만들었다. 만드는 데 총 56년 걸렸다. 그러니 성자가 분체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시대 말씀을 전하며 휴거 역사를 펴 나가게 하셨다. 섭리 역사는 세계로 뻗어 나갔다. 시대 구원을 받은 자들의 값만 따져도 수백조가 되고, 영 휴거까지 이루면 천문학적인 값이다. 고로 56년 동안 만들면서 하루에 수십억씩을 번 것이다. 56년의 값을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느냐. 천문학적인 숫자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만 큰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에 영원히 누릴 것을 얻게 한 것이 더 값이 크다. 자기를 투자하여 자기를 만들어라.

18. 성자가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라. 다 만들어서 성자에게 쓰여지면, 만드는 과정의 날마다 수십억씩 번 격이 된다.

19. 선생을 다 만들어 놓고 쓰니, 1분에 1억도 벌었다. 너도 만들어라. 성자가 말씀하시기를 300선 휴거를 이룬 자들은 “지구 하나보다 더 값어치 있다. 아니, 비교할 수 없다.” 하셨다. 만일 지구를 너에게 준다 해도 인생 100년만 사는데, 더 먹고 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영을 휴거시키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니, 그 값이 더 크지 않느냐. 또한 영으로 누리니, 영은 육보다 400억만 배 더 느끼니까 엄청나다. 그러나 만들기는 쉽지 않다. 목숨 걸고 만들어야 된다.

20. 성자가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

21. 가령 성자가 돌을 주셨다 하자. 그 돌을 어떻게 놓느냐가 요리다. 성자가 나무를 주셨다 하자. 그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가 요리다.

22. 성자가 한 잠언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며 쓰느냐가 요리다.

23. 가령 시장에서 돼지고기를 사 왔다 하자. 요리하기에 따라 맛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진다. 두루치기, 구이, 찜 등 요리하기에 달렸다. 부위별로 다양하게 요리를 해야 제맛이 난다. 이와 같이 잠언도 그 내용과 뜻에 따라 각종으로 표현하여 근본 뜻을 나타내야 된다.

24. 만들기에 달렸다.

25. 생각이 축복이다.

26. 저마다 누구나 생각과 실천으로 자기를 만들기에 달렸다.

27. 사람은 만들기에 달렸다.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며 행하다가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술, 담배, 이성 사랑, 성적 향락, 잠, 노는 것, 세상 문화 예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돈, 자기 취미 생활 등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고 그것을 못 끊고 계속한다. 고로 천국을 좋아하지도 않고, 천국에 가려 하지도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 살지도 않는다. 고로 천국에 못 가게 된다.
2. 이 세상에서 자기 욕이 산 대로 자기 영이 그와 같은 영의 세계에 가게 된다.
3. 이 세상은 욕신이 살아가면서 자기 영을 위해 살아서 자기 영을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곳이다.
4.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신이 산 그대로 자기 영이 만들어져 영이 영원히 거할 영의 세계가 결정된다. 이 세상은 자기 욕을 통해 자기 영을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 사는 곳인데, 욕이 욕만을 위해 사니 결국 그 영이 천국에 못 가고 끝난다.
5.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잠깐 즐기며 사는 데 다 투자하고 끝난다.
6.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데 시간을 다 쓰고 하루해가 졌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놀다가 하루가 끝났다. 어떤 사람은 노래하며 춤추고 세상 예술에 빠져 살다가 하루가 끝났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다가 하루가 끝났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하루가 끝났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의 일을 하다가 하루가 끝났다. / 자기 욕의 하루 삶의 행위에 따라서 그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영혼이 갈 영의 세계가 결정된다. ‘하루’와 같이 ‘인생 일생’이 그러하다.
7.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못 믿고, 제대로 모르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믿는다. 고로 거의 천국 갈 자격은 상실되어 산다.
8. 천국에 갈 자인지, 못 갈 자인지, 그 욕신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보면 거의 안다.
9.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으면서 자기가 천국에 갈 줄 알고 만족하며 그 차원에서만 산다.
10.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신’이 <천국 차원의 삶>을 살고 <천국 차원의 생활>을 해야 ‘자기 영’이 천국에 간다.
11. <천국>은 오직 성삼위를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온전히 사랑하며, 오직 성삼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랑의 세계다. 고로 천국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성삼위를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12. 이 세상에서 ‘욕신’이 <천국 차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욕이 죽은 후에 자기 영이 영계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영계에서도 영으로서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영계에서 영으로 행하는 것은 욕을 가지고 자기 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매우 더 어렵다. 영계에서 영으로 잘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예 욕신이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삶을 확실히! 살아야 된다.
13. 천국에 꼭 갈 자인데, 세상에서 이성을 좋아하며 살다가 천국에 못 간 자들이 그리도 많다. 이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행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그의 나라에 가게 된다.
14. 세상 이성 향락은 1년, 10년, 20년, 30년 누리고 살았어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성 향락은 욕이 늘어 사라지듯 무(無)로 사라진다. 욕이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면, ‘욕’은 세상에서도 욕신대로 인생 삶의 낙을 누리며 천국같이 살고, 욕신이 늘어 죽어도 그 ‘영’은 욕이 산 것같이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여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어 흑암과 지옥에는 절대 안 가고 천국이나 낙원이나 선영계로 가게 된다. 이 세상에서 욕이 최첨단으로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욕’

도 세상에서 최고의 천국의 삶을 살고, 그 ‘영’도 천국의 최고 위치인 <신부성>에 간다. ‘영의 운명’과 ‘영이 영원히 거할 곳’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15. 부귀영화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성 사랑이나, 예술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아도 세상에 속한 삶은 결국 ‘육’으로도 ‘영’으로도 남는 것이 없다. ‘영’에게 결국 남는 것은 흑암 세상 영원한 고통뿐이다.

16.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신나게 놀며 즐겼어도... 끝나면 과거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하나의 꿈결같이 끝나 버린다. 사람이 늙어서 80세만 돼도 뇌세포도 그만큼 늙어서 과거의 것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다. 나이가 90세 이상이 되면, 과거의 것이 거의 생각이 안 난다. 고로 무(無)가 된다. 또 육신이 죽어 영이 영계에 가면, 영에게 닥친 것을 행하며 살기에 바빠서 생각이 안 난다. 사람에게는 모두 ‘영’도 있고 ‘혼’도 있으니, 저마다 영계에 가서 실력껏 보아라.

17.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실컷 먹고 입고 즐기며 살면, 육이 만족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니 영의 세계의 것은 99% 모르고 산다. 육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의 삶으로 이어지는데, 모르고 산 만큼 영원히 손해다.

18. 모르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못 하는 것이다. 모르고 못 하는 만큼 손해다.

19. 절대 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육’이 육의 세상을 살면서 자기 영을 만들어 ‘영’이 영원한 세상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해 <인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성삼위는 인간의 육이 세상에서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살다가 자기 영을 천국의 영으로 변화시켜 천국에 오라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 지자들과 메시아를 보내어 하늘의 비밀을 가르치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성 향락을 누리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는 것, 입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입는 것,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에 치중하여 “실컷 누리며 살자!” 한다. 맞다. 그렇게 살면, 정말 좋다. 그러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인간과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구원자를 믿지 않고 의롭게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여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심판의 대상자는 그의 영이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살게 된다. 자기 ‘육’이 자유의지로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의롭게 살아서 자기 ‘영’을 구원해 놔야 된다. 천하의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법은 공의롭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 하지 말고, 그 법대로 자기를 고치고 살아라.

20. 사람들은 육신 세계의 것만 생각하며 구원자를 불신하고, 거절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만 세상을 산다. 고로 자기 무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구원을 상실하고 자기 영을 멸망의 영으로 만든다. 고로 그 영은 사망에 처해 영원히 살게 된다. 사망으로 가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 아무나 파악해 보아라. 거의 대부분이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고 있고, 또 자기만의 생각과 인식으로 믿고 있다. 고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21. 이 세상의 것들은 눈으로 100% 보인다. 또 세상의 있는 것들은 먹고, 입고, 취하며 살 수 있다. 이같이 세상의 것들은 100% 보이고 느껴지니 확실하다. 그런데 천국과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들을 먹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한다. 세상의 것을 보아라. 눈에 보이며 존재하더라도 자기가 행하면서 보고, 듣고, 먹고, 입어야 느껴지지 않느냐. 이와 같이 영의 것도 육신이 보려 하고, 들으려 하고, 느끼려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사랑해야 느껴진다.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의 것들을 배워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된다.

22.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과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육의 것>도 할 수 있고 <영의 것>도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23.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자기가 하고자 하며 몸부림치며 행해야 삼위일체도 그 행위대로 대하신다.

24. 섭리사에서도 누구든지 하고자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 주께 간구하는 자에게만 삼위일체가 역사하신다. 또한 성자도 분체도 자유의지대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챙겨 주며 역사해 준다.

25. 성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합당하면 성자의 마음을 주며 행하신다.

26. 저마다 '현실'에도 '미래'에도 문제없이 살아야 된다. 현실 삶만 기쁘고 즐거우면 안 된다.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미래에 지옥이 된다.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27. 분위기는 진입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28. 분위기는 진입로다.

29. 분위기에 사는 자는 아직도 진입로에 있는 자다.

30. 분위기를 걷어치우고 뛰는 자는 이미 진입로 톨게이트를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와 같다. 이들에게는 분위기가 필요 없다.

31. '뇌'가 굳고 '사고'가 굳은 자는 보아도 들어도 못 느낀다.

32. 치매 환자는 보고 듣고 먹어도 못 느낀다. 그냥 살아 있기만 한다. '뇌'가 굳고 '사고'가 굳은 자도 그러하다.

33. '뇌'가 굳은 자는 뇌를 풀고 살아야 느끼고 깨닫는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순리로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기본으로 도울 것만 돕고, 나머지는 자유의지대로 하게 두신다.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살면, 그 행위대로 돕고 역사하신다. 공의로운 삼위일체이시다.

35.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하기 싫어하여 자기 뜻대로 산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대로 그냥 놔둘 뿐이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놔두는 것이다.

36.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자를 믿고, 삼위일체가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합당하게 역사해 주신다.

37.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욕으로 끝나고 영은 영원히 고통 받고, 어떤 사람은 성자와 주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 자기 영을 천국에까지 보내기도 한다.

38. 세상만을 위해 살면 그 욕도 영도 거의 사망으로 기울어져 끝난다.

39.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고 있다.

40. 현대인들은 남이 사는 것에 신경을 안 쓴다. 자기 삶에 빠져 사는 시대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에만 집중하고 혈안이 되어 살아간다.

41. 현대인들은 자기 좋아하는 삶, 돈, 명예, 이성, 환경, 취미, 먹고 즐기는 것, 각종으로 편안한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산다. 고로 하나님도, 메시아도, 종교도, 형제들도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간다.

42. 자기의 편안함을 감소시키는 것은 '희생'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지 않고, 현실에서 편안하게만 살려고 한다.

43. 자기 자유의지로 인한 우선권의 삶이 사람의 현실의 삶이다.

44. 옆의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삶만 산다.

45.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애인만 챙기며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46. 남을 구원하려면 힘이 들고, 희생하고, 손해를 보니 싫어한다. 그러니 미래에도 현실에도 희망이 없다. 농사도 지으려 하지 않고, 만들어서 쓰려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먹고 즐기는 삶이 되었다. 그러니 미래를 위해 자기를 만들려 하지도 않는다. 겨울이 오면 그제야 괴로워하며 “현실주의 삶이 나를 이같이 만들었다.” 하면서 눈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산다. 미래 영의 세계에서 자기 영에게 닥칠 것을 모르고 산다.

47.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야 주도 구원한다. 주는 주께 구원해 달라고 매달리는 자를 구원의 우선순위로 두어 돕고 구하려 간다. 그리고 후에 다시 또 와 본다. 그러나 그때 간구하고 매달리지 않으면, 생각이 없으면 주는 그냥 간다. 혹은 주가 마음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면서 말씀의 씨를 뿌려 주며 돕고 가기도 한다. 성자도 그리하신다.

<2013년 11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체질을 바꾸려면, 기존에 하던 것을 전혀 안 해야 된다. 가령 늦게 자던 것을 아예 안 하고 일찍 자야 일찍 자는 체질로 바뀌고, 늦게 일어나는 것을 아예 안 하고 일찍 일어나야 일찍 일어나는 체질로 바뀐다.

2. 기도 체질, 말씀 체질, 찬양 체질, 관리 체질, 전도 체질, 일하는 체질, 꿈 체질로 만들어 놓으면 쉽다.

3. 모든 것은 만들어 놓고 하겠다.

4. 가령 농부가 삽이나 쟁이나 호미를 안 만들고 손으로 농사를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와 같이 체질을 만드는 것은 농사지을 때 각종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다. <자기 몸>이 각종으로 필요한 ‘삶의 연장 도구’다.

5. 사람이 걸어 다니는 체질로 안 만들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온몸이 약해진다.

6. 글 쓰는 체질로 만들지 않으면 말만 하지, 말한 것을 글로 못 쓴다.

7. 체질을 만들어 났다는 것은 자기 몸을 그에 해당되는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놔서 그것을 능히 하는 기술자가 되었다 함이다.

8. 체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면에서 주인이 된 것이다.

9.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체질로 만든 자는 초인 체질이 된 자다. 일반 사람은 이렇게 못 한다.

10. 하루에 잠을 꼭꼭 6시간씩 자야 건강한 사람도 하루 3시간씩 잠자는 체질로 만들면, 3시간만 자야 건강하다. 이것이 체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11. 체질을 만든 자는 구조를 변경시킨 자와 같다.

12. 인간의 몸과 뇌와 마음은 만들기에 달렸다. 길들이기에 달렸다.

13. 자기 몸과 뇌와 마음을 게으르게 길들인 자는 게으른 체질이 된다. 고로 부지런하게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고생되어 못 한다.

14. 돼지는 구정물에 길들여져서 깨끗한 물보다 썩은 구정물을 더 좋아하며 맛있게 먹는다.

15. 사람도 악하게 길들여지면 악한 체질대로 행하며, 그것이 생활이 되어 자기 인격인 양 행한다.
16. 이성, 향락, 퇴폐 문화, 술, 담배, 커피, 탄산음료, 맵고 짠 음식, 과식 등 체질이 되면, 꼭 그렇게 해야 '뇌와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몸'은 망가진다. /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체질로 만든 자는 안 해야 뇌와 마음이 흥분되고 기쁘다. 그로 인해 '몸'도 건강하다.
17. '정말 필요한 것'이 뇌의 체질이 되게 하여라.
18. 뇌를 안 쓰고 스마트폰이나 쓰고 살면, 뇌를 놀리게 되어 뇌 기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져서 노인같이 된다.
19. 뇌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20. '빛'으로 150억 년 걸려 갈 곳도 '뇌'로 단 몇 분이면 가기도 한다. '뇌'로 천국까지, 각종 영의 세계까지 일순간에 간다. 스마트폰은 영원히 이같이 못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와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의 차이를 알아라.
21. 뇌의 기능을 통해서 자기 혼과 일체 된 마음과 정신은 그 속도가 빛보다 400억만 배 빠르다. 그 속도는 스마트폰의 전파와는 비교가 안 된다.
22. '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자기나 상대의 육·혼·영의 상태와 현상을 영상으로 보기도 하며, 자기나 상대의 혼·영과 통하기도 한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모두 영체다. 스마트폰 없어도 '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천사들은 우리에게 전할 것을 '뇌'에 전달한다. 그러나 '자기 뇌'에 이상이 있으면, 그 말이 안 들려서 전달받지 못한다. 뇌를 고치고, 마음·정신·생각을 고치면 통한다.
25. 선생은 50년 전부터 '뇌 스마트폰'을 연구하고 사용했다.
26. 사람끼리도 영파, 정신파, 마음파로는 지구에 있든지, 우주에 있든지 거리의 제한 없이 금방 통한다.
27. '뇌 스마트폰'으로 보면, 확실히 보인다. 우주, 천국 낙원 등 육계와 영계의 모든 것이 확실히 보인다. 스마트폰보다 100억 배, 1000억 배, 1조 배 더 확실하게 그대로 보인다. 영들의 키와 형태 등 모든 것이 그대로 확실히 보인다. 전능자가 창조하신 '뇌 스마트폰'은 인간이 만들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늘과 땅 차이다.
28. '뇌 스마트폰'은 판단도 하고, 구상도 하고, 창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신과 대화도 하고, 육계인 지구를 벗어나 영계를 구경도 하고, 또 영계를 중계하여 보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자가 허락하시면, 신비한 영의 세계도 보게 된다. 육계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를 영계에 가지고 가서 보면, 영계에서는 답이 있다. 그 답을 육계에 가지고 와서 행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29. 영계의 것을 보고 와서 육계에서 만들어 가동하니, 실현되었다. <월명동 사랑의 집>도 영계의 것을 축소해서 건축한 것이다.
30. 자기 '육'이 지능이 낮아서 답을 찾지 못하면, 자기 '혼'은 지능이 높으니 혼적 차원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영'은 더 지능이 높으니 영적 차원에서는 더 쉽게 답을 찾는다.
31. '영'은 <신적 지능>을 가지고 있다. 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나, 생명 관리나, 교회 운영 등 능력이 탁월하다. 고

로 기도하여 성자에게 허락받고 영계에서 답을 받고 하여라. 그러면 쉽게 되고, 이상적으로 된다. 발달된 영계에 가서 거기서 해 놓은 것을 보면, 마치 자동차 앞의 비행기를 보는 것 같다. 육계에서도 발달된 나라에 가서 해 놓은 것을 보고 와서 하면, 쉽다.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차원으로 발달된 세계다. 고로 모든 것이 가장 수준 높다.

<2013년 11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32. 성자의 계시를 받아 글로 쓸 때 자기 육적 차원에서 쓰면, 내용·어구·문장·단어·표현 등 세상 글 표현법의 제재를 받아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깨달음·느낌·심정으로 전해 주신다. 영계에 가면, 영과 혼의 지능을 사용하기에 쉽게 깨달아진다.

33. 영계에서 육계의 것을 보면, 유리 속같이 다 보인다. 사람의 마음속과 그 생각이 다 보이고, 지체도 훤히 다 보인다.

34. 월명동을 영계에서 보았다. 땅에 바위가 묻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육계에서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위가 흙에 묻혀 있으니 10년, 50년을 봐도 쓸모없는 바위로 보였다. 영계에서 보니 완전히 작품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 땅을 파고 작품 바위를 드러나게 해서 다시 보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정교한 작품이었다.

35. 영계에서 건물을 보면, 육계의 건물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영계에서 건물을 보고 와도 육계에서는 시간상, 경제상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다만 육계에 맞게 구상을 옮겨 만들 뿐이다.

36. 영계에 동상이 있으면, 영계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 그 동상이 움직인다. 그런 것을 육계에서 만들려면, 많은 경비가 든다. 그렇게 만들어도 영계의 것에 비하면, 그림자 차원이다.

37. 영계에서 보다가 육계에서 보면, 너무 초라하다.

38. 영계에서 육계의 어떤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려고 보여 주실 때는 극적으로 보여 주신다.

이성 죄를 지은 자의 상태를 보여 주셨는데, 남녀가 큰 똥통 안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성행위가 끝나고 나오니 똥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고, 몸에 썩은 물이 흐르는 채로 다녔다. 그 옷과 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배설물같이 이성의 냄새가 나니 즉시 알아보고 구역질을 하며 피해 갔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성 죄를 지은 자의 육과 영의 실체가 그와 같다는 것이다.

39. 육계에서 성격이 너무 무섭고 내게 말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놓고 기도했다. 기도 중에 영계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았다.

그는 독사가 되어 말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면서 나를 물어 댔고, 그는 나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치면서 말을 했다. 영계에서 보면, 말이 실체가 되어서 행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이 사람은 나쁜 성격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니, 이 사람을 배추로 생각하고 배추한 포기에는 소금 3되를 넣고 절이듯 해 주세요.” 했다.

결국 소금물에 절인 배추가 되게 했다. 그로 인해 그에게 각종 고통이 와서 심정이 타 들어가고 괴로우니, 결국 내게 무섭게 하지 못했다.

40. 선생은 교만한 자, 남에게 무섭게 대하는 자, 세상 향락에 젖어 사는 자, 하나님 주권권에서 벗어난 자들을 놓고 매일 기도한다. 그러한 개인도 민족도 <배추 인생>으로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소금을 한 되 뿌려, 소금에 절인 가을철 배추김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41. 역새같이 강한 배추 인생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배추 밭에 소금 눈이 덮이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42. 거짓말하고 속이는 원숭이는 골을 빼 놓으면, 아예 속일 생각을 못 한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도 그렇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43. 한 나라에서 주권자를 하던 자들이 백성들을 속여 백성들의 것을 취한다. 이런 자들은 거짓말을 못 하게 하나님! 그 골을 빼 달라고 기도한다. 그 기도가 합당하니, 하나님은 합당한 자를 시켜 세계의 어떤 주권자에게라도 원숭이 골 빼기와 같은 일을 행하신다.

44. 저마다 '뇌'가 속이고, 각종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 고로 뇌를 고치기다! 뇌에서 불의한 것을 하게 한다. 고로 저마다 뇌에서 불의한 것들을 빼내기다!

<2013년 11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은 '증거의 신'이다. <성자>는 '말씀과 사랑의 구원의 신'이다.

2.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3. <하나님과 성자>는 '남성'으로 존재하시고, <성령님>은 '여성'으로 존재하신다. '남성 신'과 '여성 신'은 모양과 구조가 다르다. 삼위일체는 그 모양과 구조대로 각각 달리 사역을 하시면서도 하나 되어 존재하신다.

4. 성령과 성자가 오시면, 감동과 감화로 불같이 뜨겁게 역사하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성자>는 '말씀과 사랑'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령>은 '감동과 감화와 증거'로 뜨겁게 역사하신다.

5. <성령님>은 하나의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과 성자처럼 확실히 존재하는 신으로서 100% 여성 신이며, 천모이시다.

6. 성령 본체는 안 보여도 첫째, '성령의 혼체'는 보여 주신다. 둘째, '성령님을 상징하는 만물'로도 보여 주신다. 셋째, 꿈으로나 영계로 성령님을 '여자 영'으로 보여 주신다. 넷째, '성령님이 육으로 쓰는 상징체'도 '여자'다. 이 모든 증거들을 보고, 성령님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성령님>은 여성 신으로서 '하나님의 자체 사랑의 상대체'다.

8. <성령님>은 천국의 절대 신이다. 육으로 나타나실 때는 지상의 '상징체'를 쓰고 나타나신다. 성령님은 여성 신이니, 그 상징체 역시 여자다.

9. 성령님은 상징체를 세우실 때, ① 절대 성자를 믿고 ② 성자 본체가 되는 땅의 구원자 앞에 절대 믿음의 조건과 사랑의 조건을 세우고 ③ 성령의 근본을 아는 자를 택하여, 그를 성령의 표상으로 세워 성령의 역사를 행하신다.

10.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며, 삼위일체가 이 시대에 보낸 육, 구원자는 오직 시대 사명자 한 사람이다. 보이는 성자의 육은 구원자로서 <말씀>으로 자기를 보내신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를 증거한다.

11. 시대가 악하여 삼위가 보낸 자도 직접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은 구원자의 희생과 사랑의 조건으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에 '성자와 본체를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상징체'를 세우신 것이다. <성령의 상징체>는 '오직 성자와 본체를 증거'한다. 그가 성자와 본체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맞다고 증거하시며 뜨겁게 감동을 주신다.

12. <성령님>이 신유, 방언, 예언, 화평, 계시,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가 외치고 행해야 '성령의 불'이 나가고, '능력'이 나간다. 성령님이 주신 신유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해야 '병'도 낫는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질서의 신'이다. 고로 아무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지 않으신다. 질서 있게 '조건'과 '행함'을 보고 합당한 자를 성령의 사역자로 택하여 그를 통해 행하신다.

14.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질서'다. 사탄은 '무질서'다. 고로 중심이 없고 혼란스럽다.

15.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조건'이 돼야 한다. 그 조건은 성자가 육으로 쓰는 자 앞에 절대 100% 흠 없이 '사랑과 믿음의 조건'을 세워 성자와 분체에게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

16. 사람의 얼굴에는 눈, 입, 귀, 코가 있다. 그리고 각각 그 특징에 따라서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도 각각의 사역자들이 있되 '분체 앞에 표상'으로서 '핵의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

17. 성자와 그 분체는 성령님과 함께 섭리사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성령의 상징체'를 세웠다. 그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18. 인간이 100% 절대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그릇이 깨져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이 100%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삼위일체가 역사하셔도 아무 소용없다.

19. '개인의 뜻'과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깨진 원인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조건이 안 되기에 사탄의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절대 안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절대 중심을 쏟지 않으신다.

20.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는 '휴거되는 데 절대적'이다. 고로 휴거되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21. 성령집회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며 각종 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때는 눈물도 나오고, 몸에 진동도 오고, 죄도 회개하고, 성자도 깨닫고, 그 육으로 쓰는 자를 깨닫고, 성령님을 느끼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을 상징적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몇 달도 못 가서 그 감동과 뜨거움과 깨달음이 마음에서 식어 버린다. 하나의 성령 체험으로 끝나고, 또 게을러지고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성령을 받았으면 행해야 하는데 기도도, 전도도, 증거도, 강의도, 관리도 뜨겁게 안 하니, 곧 곤고해지고 심령이 답답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서 성자와 그 육을 뜨겁게 증거하지 않으니,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22. 성령을 받고서 <성자>와 <성자가 그 육으로 쓰는 자>를 100% 증거해야 된다. 성자와 그 육을 100% 시인하며 자꾸 자기가 아는 대로 증거해 줘야 '성령의 불'이 연속되고 '감동'이 연속된다.

23.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를 보아라. 늘 성자와 분체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24. 시대가 무지하고 악하니, 시대 사명자는 불신을 당한다. 고로 시대 사명자를 강하게 증거해야 그 증거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오게 된다.

25.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늘 성령의 주관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려면, 성자와 그 육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고 행해야 된다. 누구든지 이 조건이 되면, 성령이 즉시 뜨겁게 역사하시고 삼위가 능력을 주신다.

26. 섭리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말씀'만 외쳐 주는 기간을 보냈다. 그러나 시대 사명자가 시대 짓값을 대신하니, 그 앞에 절대 믿음과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를 성령의 사역자로 세워 성삼위께서 때에 맞추어 섭리사에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27. 누구든지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그 육을 절대 믿고 시인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자와 그 육을 증거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연속된다.

28.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시대 말씀과 본체를 100% 시인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그 마음과 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29. 시대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말씀 증거>, <말씀 주인 증거>를 강하게 해야 된다.

30. 매일 성령님을 100번, 200번씩 부르며 그의 존재를 시인하여라. 그러면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신다.

31. 성령의 역사는 체험에서 끝나지 말아야 된다.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꼭 물고 엄마 품에 안겨 살듯 해야 된다.

32.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지은 죄도 깊은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고로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여 죄가 남아 있다. 죄가 남아 있으면 휴거는 안 된다.

33. ‘성령’이 <죄>도 깨닫게 하시고, <성자와 본체>도 깨닫게 하시고, <시대 말씀과 시대>도 깨닫게 하시니, 꼭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2013년 11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34. 성령을 뜨겁게 받아라. 그래야 성자와 그 욕을 제대로 증거한다.

35. 성령을 받았어도 성자와 그 욕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바로 식는다.

36. 성령을 받지 못하니, 욕성에 매여 성자와 그 욕을 접시 물같이 얇게 증거하고, 성자도 그 욕도 폭 덮어 놓는다.

37. <신>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

38. 증거할 때는 <영적인 증거>를 해야 된다. <영적인 증거>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증거하는 것이다. 먼저 그를 증거해야 그 말을 듣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믿고 따른다.

39. 성자와 그 욕을 놓고 살살 돌려 말하면, 말씀을 가르쳐도 마치 이가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헛바닥으로 과일을 훔쳐 먹고 빨아 먹듯 말씀을 듣는다. 고로 말씀을 들어도 별 희망도 없고, 힘도 없고, 알라도 조금만 알고, 믿어도 100% 못 믿고, 행해도 일부만 행한다.

40.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전초하고 증거하면, 그 말을 듣는 자들도 가슴이 뜨거워져 감동을 받는다. 고로 즉시 말씀으로 연결되어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역사, 성자의 역사, 본체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난다. 고로 가르치는 자도 더욱 힘이 난다.

41. 전도도, 관리도 성령 충만한 차원에서 하면, 힘과 능력을 받아 확실하게 증거할 것은 확실하게 하게 된다. 이에 성령께서 더욱 뜨겁게 역사하신다.

42. 성령의 사역자가 외칠 때는 성령의 불과 능력이 나간다. 이것을 성자도 성령도 인정하시고 선생도 인정하기에 그를 계속 성령의 사역자로 쓰는 것이다. 항상 선생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외치고 행하니, 성자가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신다. 고로 성령의 불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용광로같이 뜨겁고,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43. 모두 “꼭 휴거되겠어! 성자와 본체를 100% 시인하고 일체 되어서 꼭 해 보겠어!” 하고, 하고자 마음먹고 하여라!

44. 모두 성령 충만하여 ‘성자’와 ‘본체’와 ‘시대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여라.

45. 지금은 <휴거>가 급한 때다. 이에 성자는 그 욕을 통해 지금 가장 급절한 <휴거의 말씀>을 주시며 휴거에 대해서 다 파헤쳐 주셨다. 고로 모두 ‘시대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잡고 다스려야 된다.

46. 세상 퇴폐 문화와 썩은 예술로 생명들을 잡으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것들에 찌들려 있는데, 생명을 택하여 하늘 역사로 데려오면서 여기서 또 그것들을 하면 실망한다. 이 시대 하늘의 소리를 외쳐야 그 영에게 희망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난다.

47. 절벽에 서서 절망 속에 있던 자에게 밧줄을 던져 주어 그 밧줄을 잡고 내려와 사는 것같이, 물에 떠내려가는 자에게 밧줄을 던져 주어 그 밧줄을 잡고 끌려 나와 사는 것같이,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생명 밧줄>을 던져 줘야 생명들이 그것을 잡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뛰어 살아난다.

48. 성령님도 성자도 오직 ‘말씀’으로 보낸 자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보낸 자를 100% 알면, 성령이 역사하시며 증거해 주신다.

49. ‘시대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며 시대 말씀으로 생명을 관리하면, 성령이 친히 함께하시어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불같이 뜨겁게 역사해 주신다.

50. 먼저 성령이 욕으로 나타나시는 <성령의 상징체>와 일체 되어 그를 통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근본이 되시는 성령과 성자와 일체 되고, 성령의 상징체가 증거하는 성자의 욕과 일체 된다.

51. 성령의 상징체는 시대 말씀을 100% 깨닫고, 성자가 욕으로 쓰는 자를 100% 깨닫고, 성자와 분체가 인정하도록 행하니... <말씀의 불> 속에 들어가고, <성령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모두 이와 같이 하여라.

52. 선생이 전하는 <성자의 말씀> 또한 ‘불’이니, 그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자들은 확실히 전하여 심령마다 ‘말씀의 불’을 던져라.

53. 시대 말씀을 전하여 불을 던질 자가 누구냐? 청중들에게도, 분체에게도, 성자에게도, 이 땅에도, 영계에도 소문이 나 행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54. ‘성령의 불, 시대 말씀의 불’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반대로 ‘혈기와 분노의 불’로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그 영이 형벌을 받고 사탄과 함께 뜨거운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된다.

55.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그 욕’을 깨닫고 증거함으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받아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성자의 신부’들로 휴거되어 휴거 200선, 300선을 넘어가는 2013년이 되어라.

<2013년 11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며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잠언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모두 “오소서. 성령이여.” 하며 성령만 받고 끝나지 말고, 영의 어머니이신 성령님을 늘 부르며 성령님께 배울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과 대화할 때, 성령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 천국 편 (성령님과의 대화)

1. 천국에는 여자 천사가 더 많다.

2. 천국에는 여자만 할 수 있는 잔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3. 나무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굵은 큰 나뭇가지보다 더 많듯이, 천국에는 여자 천사가 더 많다. 잔일들이 많으니 그 잔 일들을 하려면, 남자 천사보다 여자 천사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이다. 천국에 가 본 사람은 안다.

4. 어디를 가든지 여자들이 부드럽게 해야 할 잔일들이 많다. 천국도 그러하다.

5. 천국에서는 거의 천사들이 사역자로서 일을 한다.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영이 신부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 영들은 신부로서 사랑에 관한 삶을 산다. 미완성 세계인 지상에서 일하듯 모르는 자들을 가르쳐 주고, 전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지 않는다. 완성된 영들로서 자기 터전에서 전능하신 성자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영화롭게 자유롭게 산다. 완성된 차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듯, 신부로 완성된 영의 삶은 다르다.

6. 어떤 영들은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성자를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면서도 지상의 사명을 가지고 행하기도 한다.

7. 천국에 가도 신부들은 사랑의 삶의 일은 꼭 해야 된다. ‘일’이라고 하면 지상에서 하는 노동을 생각하는데, 그런 일 이 아니다. 완성된 신부의 영이 되어 휴거되어 천국에 간 영들의 일은 ‘사랑에 해당되는 일’이다. 사랑 때문에 단장하 고, 사랑 때문에 먹고, 사랑 때문에 이야기하고, 사랑 때문에 마차를 타고 다니고, 사랑 때문에 구경 간다. 천국에서 사 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8. 천국으로 휴거된 영들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 되어, 누가 안 가르쳐 줘도 다 안다. 천국에도 ‘급수’가 있고, ‘서열’이 있다. 질서 때문이다. 자기 육이 세상에서 세운 공적만큼 급수와 서열이 가려진다. 이 급수와 서열은 ‘벼슬’이며 ‘영광’ 이다. 급수와 서열에 따라 천국의 어느 위치에 거하는지가 정해진다.

9. 천국은 복잡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글거리지도 않는다. 천인들이 수없이 많아도 질서가 있어서 각자 그 위치에 적 당하게 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쓸쓸한 곳이 없다. 영들이 사는 곳과 자연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10.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살면서 영계를 보니 보이다가도 흐릿하게 보이고, 보이다가도 사라지니 ‘실제도 그러한가? 천국은 존재하다가도 사라지는가?’ 하고 인식한다. 육신을 벗고 영계에서 영으로 살면, 영계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 육신을 통해서 육의 뇌 차원과 육의 정신적 흔적 차원으로 영계를 보니, 오락가락하게 보이는 것이다.

11. ‘육신’은 순간 본 것, 들은 것, 읽은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나 ‘영’은 기억력의 신이다. 고로 잊어버리는 것이 없다. 또한 원하면, 지난날의 것들이 훤히 생각난다.

12. 육계에서는 육이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해야 느낀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영의 몸이 직접 안 닿아도 닿은 것같이 느끼고, 시야도 육계와 달라서 먼 데 있어도 훤히 잘 보인다. 영은 육보다 1000배, 10000배 더 총명하고, 확실하게 느낀다. 고로 더욱 천국이다.

13. 육계에서는 육이 나이가 먹으면 감도가 떨어져서 눈으로 봐도, 일을 해도, 사랑을 해도 조금밖에 못 느낀다. 천국 에서는 영으로 산다. 고로 육보다 1000배, 10000배 더 확실히 느끼고 산다. 고로 천국이다.

14. 같은 과일을 먹어도 육체 세포가 100% 온전한 젊은이들이 먹는 맛과, 나이 먹고 세포가 죽은 자들이 먹는 맛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15. 천국은 자기 급수대로 무한대로 느끼니, 천국이다.

16. 세상에서 자기 영의 급수를 최고로 높이고 1급으로 휴거되어 천국에 가야 천국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 랑을 100% 느끼고, 천국의 삶을 100% 느낀다.

17.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모두 존재물을 보기는 본다. 그러나 저마다 감도와 감각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달리 본

다. 감도와 감각이 강한 사람은 천국같이 느끼며 살고, 감도와 감각이 약한 사람은 보통으로 느끼며 산다.

18.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과 혼이 발달되고 깨달아 알고 완성된 만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잘 느끼고, 기쁨도 잘 느낀다.

19.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과 혼이 완성된 만큼 느끼니, 저마다 삶의 차원대로 받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

20. 월명동도 그 가치를 알고 깨닫는 만큼, 사연을 아는 만큼, 역사를 아는 만큼 같은 배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A급으로 느끼고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B급으로 느낀다. 똑같은 것이라도 자기 차원만큼 느낀다.

21. 성령님도 부르고 찾고 대화하고 아는 자만 알고 느끼고 사랑으로 교통한다.

22. 하늘의 것들은 자기가 본다고 해서, 겪는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지 못한다. 보편적인 것만 기록하고 전할 뿐이다. 하늘의 것을 보고 받는 자는 차원이 높으니, 본인만 알고 행한다.

23. 자기 차원의 것은 자기 수고로 자기만 깨닫고, 매일 삼위일체와 교통하며 기뻐하며 산다.

24. 세상에서 성자와 주와 교통하는 차원대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산다.

25. 세상의 사물도, 동물도, 식물도, 사람도 알고 대하는 만큼 느끼고, 얻고 기뻐하며 사랑으로 살게 된다.

26. 천국을 보고 왔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한 것도, 천국에서 행한 것도 합당한 선까지만 기록하여 전한다. 차원이 높은 것은 알려 줘도 어차피 모른다. 알려 줘도 마치 어린아이는 높은 과일나무의 과일을 못 먹듯이, 갓난아기가 불고기를 못 먹듯이 그러하다. 갓난아이에게는 불고기보다 젓이 차라리 맛이 있듯이, 천국을 못 본 자에게는 천국에 대해 다 말해 줘도 그 기쁨을 모른다.

27. 체질이 돼야 한다. 성장해야 된다. 갓출 것을 갓취야 된다. 그래야 그에 해당되는 차원의 것을 얻고 누린다. 공의의 세계다.

28. 수고대로 얻고, 수고대로 상대가 결정되고, 수고대로 먹고 즐기며 기뻐한다. 이상세계에 살려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행하여 수준을 높여라!

29. 세상에서도 애인끼리 차원대로 누린다.

30. 생선회를 먹을 줄 모르면 비싼 회를 먹어도 “비린내 난다. 구역질 나서 못 먹겠다.” 한다.

31. 진리와 이상세계를 줘도 자기가 차원이 안 되면 흡수를 못 한다.

32. 영원한 것과 하늘의 것은 듣고 행하면 참으로 좋다. 그러나 자기가 뇌 체질, 마음 체질, 몸 체질을 만들어야 들을 수록, 행할수록 천국이 되고 기뻐 행하면서 산다.

33. 뇌 체질, 몸 체질, 행위를 변화시켜라.

34. 육을 통해 영의 체질이 천국 체질로 온전히 변화돼야 천국에 간다.

35. 육을 통해 영이 천국 체질이 되지 않으면, 안 맞아서 천국에 가도 못 산다. 자기 체질이 맞는 영계를 찾아서 나온다.

36. 세상에서 자기 육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썩은 문화 속에서 살면, 그 영도 그와 같이 형성된다. 고로 그 영이 천국

에 가서 살아도 싫어서 뛰쳐나온다.

37. 세상에서 욕이 살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여 욕을 통해 혼과 영을 천국 체질로 만들어라.

38.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낙원급 세계밖에 모르고 살고 아는 것과 실력이 낙원급 뿐이니, 자기 영을 ‘낙원 체질’로 만든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실력대로 자기 영을 ‘선영계 체질’로 만든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체질의 삶으로 자기 영을 ‘악영계 체질’로 만든다.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와 주를 모르고 육적으로 삶으로 자기 영을 ‘지옥 체질’로 만든다. 그러다가 그 영이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 지옥은 극적인 악의 세계라서 마치 1분이 1000년같이 느껴져 지옥의 고통이 괴로워서 이를 갈며 산다. 언제 지옥에서 나올지 기약이 없다. 기약이 있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기약이다.

39. 지상에서 몰라서 천국에 가기 위한 일을 안 하는 자들이 많고도 많다. 그나마 돈이나 별 곳이 있으면 할 일을 찾고, 이성 사랑을 할 곳이 있으면 할 일을 찾고, 명예를 얻을 곳이 있으면 할 일을 찾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놀면서 산다. 그 좋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일을 안 한다. 세상에서 몰라서 못 하는 것같이 그리도 원통하고 억울한 일은 없다. 알고도 천국에 가기 위한 일을 안 하는 자들도 많고 많다. 그는 결국 최고로 억울한 자가 된다.

40. 천국이나, 지상이나 행하는 대로 무한대로 얻는 세계다.

41. 높게 살고 넓게 살고 무한하게 살려면, 매일 욕으로도 행하고 혼으로도 행하고 영으로도 행해라. 그러면 욕, 혼, 영이 발달되어 무한대로 행하게 된다.

42. 새벽에 기도하여 간구하니, 성령님이 나를 보고 “배워라.” 하셨다. 이에 “저는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납니다.” 하니, 성령님은 “배우고 잊어버려도 배워야 누가 이야기하면 배운 것이 생각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질 때 배운 것이 생각나 감사하고, 평소에도 만물을 보거나 생활할 때 배운 것이 생각나 사용한다. 꿈을 꾸고 잊어버린 것도 배워야 기억난다.” 하셨다.

43. 또 성령님께 간구하기를 “섭리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줘도 차원이 낮아서인지, 가치를 몰라 답답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했다. 이에 성령님은 “섭리 사람들이 나 성령에 대해 알면서도 내게 잘 안 물어본다. 물으면 가르쳐 줄게.” 하셨다.

44. 여자들은 성령님께 배울 것이 정말 많다. 성령님은 여성 신이기 때문에 마치 엄마가 딸을 가르치듯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45. 삼위일체는 각자 특기대로, 사명대로 가르쳐 주신다. 고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알고 사명대로 배워야 된다.

46.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자들도 나 성령에게 배울 것이 무진장 많다. 이는 여성 신인 나 성령이 상대 입장에서 남자들을 보니, 갖춰야 할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남자가 남자를 보고 가르칠 것도 많지만, 상대인 여자가 남자를 보면,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간 것같이 느껴지고 표가 나서 잘 가르친다. 나 성령이 상대 입장에서 남자들을 가르칠 것이 무한대로 많다.” 하셨다.

47.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 뜨거워서 “성령이 오셨네.” 하며 만족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서 상천하지에 한 분밖에 없는 천모 성령님과 통해야 된다. 집에서 엄마와 대화하며 통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천모 성령님과 대화하며 통해야 된다.

48. 신은 신같이 대해야 통한다.

49. 상천하지의 최고로 예쁘고 멋있고 신비한 여인과 통해 보고 가까이해 보려면, 천모 성령님과 통해라. 천국과 영의 세계와 세상 욕의 세계에서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고 신비한 전지전능한 여신은 오직 성령님뿐이다.

50. 성령 본체는 본 자가 없다. 사람의 영적 급수와 차원대로 성령님은 ‘상징적으로’ 성령 본체의 분체인 ‘혼체’로 자신을 보여 주신다.

51. 성령 본체는 못 봐도 ‘상징체’로, 혹은 ‘분체’로 성령님을 보여 달라고 구하여라. 성령님은 본체도 있고, 분체인 혼체도 있다. 성령님의 본체는 못 보지만, 분체인 혼체는 볼 수 있다.

52. 사람의 영도 ‘분체’가 있고, 본체보다 차원이 낮은 ‘분체’가 있다. 꿈에서는 ‘영의 분체’를 만나게 된다. 영의 분체가 곧 ‘혼체’다. ‘분체 영’은 특별한 때만 나타난다. 성령님도 성자도 하나님도 ‘분체’가 있고, 사역체인 ‘분체’가 있다.

53. 성령님은 사람들의 영적 급수와 차원대로 자신을 보이신다. ‘분체인 혼체’로 자신을 보이실 때도 있고, 세상에서 자기 형상을 닮은 자를 그때마다 보이는 분체같이 쓰시며 ‘상징체’로 자신을 보이실 때도 있다. / 선생이 전도할 때, 일할 때, 때마다 각종으로 제자들을 쓰듯 하신다. / 성령의 분체인 혼체도, 상징체도 성령님의 형상을 닮게 하여 보여 주신다.

54. 선생이 성령님의 분체나 상징체를 보니, 여실히 여자였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성령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형체가 변형되면서 전체가 빛나고 얼굴은 빛에 싸였다. 다른 무리들은 딸같이 작게 보통 키로 보였고, 여성 신 성령님은 키가 2m 이상으로 보였다. 성령님은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계셨다. 모두 ‘성령 엄마, 천모’라고 부르며, 마치 여왕이 나타난 것처럼 대했다. 처음에는 나무에서 큰 독수리가 보여서 쳐다봤다. 그 독수리가 땅에 살포시 앉더니, 여자로 보이면서 그 모습이 변형되어 빛에 싸였다. 독수리는 왕을 상징한다. 성령님은 상천하지의 여왕이며 삼위일체라 함이다.

55. 성령님은 자기 영적 급수대로, 자기 차원대로 보인다. 자기 차원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

56. 천국의 개인 집에는 샤워장과 수영장이 다 있다. 천국에서 씻고 닦을 필요가 없는데 왜 샤워장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천국 생활이니 씻는 것이다. 샤워하면 기분 좋고 기쁘니까 한다. 천국에서는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 물 사랑, 생활 사랑을 하며 산다. 수영은 천국에서 즐기는 세계다. 천국에도 영계에서도 수영할 때는 옷을 입고 하기도 하고, 수영복을 입고 하기도 한다. 모두 물 위의 물고기같이 날아다니며 수영한다. 어느 때는 수심 30~40m에 들어가서 잠수하는데, 세상같이 장비 없이 깊은 물에서 잠수한다. 물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다니는데, 물속의 아름다움이 다 보인다. 각자 실력껏 수영한다. 물에 빠져 죽는 자는 없다. 남녀들이 모여서 수영한다.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모르고 사는 것같이 억울한 것이 없다. 모르면 길을 가다가 쇠꼬챙이에 양쪽 눈을 찔려 큰 해를 당하기도 한다.
2. 어떤 사람은 모르고 길을 걷다가 물이 가득 채워진 깊은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7시간 동안 몸부림치다가 죽었다.
3. 모르고 사는 것같이 억울한 것이 없다. 우측 길로 가면 되는데 좌측 길로 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망길로 갔다.
4.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 하다가, 모르고 상대방에게 많은 금전을 주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자는 돈을 받고서 구해야 할 사람을 더 괴롭혔다.
5. 천국에 갈 여자가 모르고 지옥에 갈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그 영향을 받고 여자도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
6. 모르니, 자기 애인에게 고통을 주는 길인데 잘되는 길인 줄 알고 계속 가다가 망했다.
7. 모르니, 자기를 구하려 오는 주를 불신하며 고통을 줬다.

8. 모르니, 영생길을 벗어나 사망길로 가면서, 그 날부터 전같이 쏘는 사망의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
9. 천사장 루시엘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하고 행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의 사자가 되었다.
10. 사탄은 점진적으로 악하게 되었다.
11. 사탄은 1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 서운함과 섭섭함과 악함을 없애지 못하고 2차로 더 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할 하와를 꾀어 타락시켰다. 고로 지옥 판결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
12. 사탄의 꾀를 받으면 금방 표가 난다. 사탄의 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길을 가다가, 거기서 떠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알면서도 사망길로 가니, 결국 사탄의 몸이 되어 그 영이 사망 선고, 지옥 선고를 받는 것이다.
13. 매일 사탄을 저주하고 심판하며 싸워라.
14.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 말씀 순종, 성자 사랑, 메시아 사랑’이다.
15. 절대!!!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16. 모르는 사람일수록 많이 물어보니, 많이 알게 된다.
17. 안다고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많이 모른다.
18. 모르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성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 주신다. 고로 물어보는 사람이 자세히 알게 된다.
19. 어린 신앙인들이 성자께 물어보고 그에 따라 성자가 말씀해 주신 계시들이 더 잘 이해되고, 그 속에 세밀한 답이 들어 있다.
20. 물을 때는 진실로 자세히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 성자가 자세히 대답해 주신다.
21. 자기와 대화하는 자의 말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말하는 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다.
22. 성자가 우리에게 계시도 하고 말씀도 한다는 것은 성자가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이며, 성자가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다.
23. 너는 어떤 머리가 되겠느냐. ‘대화 머리’가 되어라.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을 미련 없이 100% 사랑하심은, 삼위일체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25. 삼위일체는 영원히 존재하시며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니, 내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렸다. 만일 삼위일체가 바뀌고 변하면, 내가 맡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시니 말길 수 없다.
26.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는 삼위일체가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라!
27. ‘영원’이 없다면 영원한 희망도 없다.

28. 삼위일체는 영원히 존재하시니, 영원히 희망이다.

29. 인간은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다.

30.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여라. 삼위일체는 영원히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면, '영원'을 약속받은 삶이 된다. 고로 '영원'이 보장되어 있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

<2013년 11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작부터 급하게 해야 된다.

2. 끝에 가서만 급하게 하면 효과가 없다.

3.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급하게 해야 그 일에 성공한다.

4. 휴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급한 것이다.

5. 100미터 달리기 하는 자들을 보아라. 시작부터 끝까지 초를 다투며 급히 뛴다. 이와 같이 <휴거>도 시작됐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급한 것이다. 모든 일도 그러하다.

6. <시작>도 기록을 내야 되고, <과정>에도 기록을 내야 되고, <끝>에도 그에 해당되는 기록을 내야 된다.

7. 전체 시간은 전체 할 일에 분배되어 있다. 그 분배된 시간에 해야 되니, 시작할 때부터 급히 서둘러야 된다.

8. 사람들은 하루 일을 할 때 “급하게 시작했으니, 이제 느슨하게 편하게 하자.” 한다. 아직 해가 밝고 시간이 많으니 그러하다. 그러나 하루에 100리 길을 가려면, 1시간에 10리씩 꼭꼭 가야 된다. 시작부터 속도를 내어 과정과 끝까지 서둘러야 그 날 갈 길을 다 간다. 휴거가 시작됐을 때 “급하다.” 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급하다. 서둘러라.” 한다. 휴거되려면, 휴거 복음을 듣고 휴거가 시작됐을 때부터 과정을 거쳐 끝날 때까지 재촉하며 행해야 <휴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그런데 사람들은 휴거가 시작됐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면 이해를 못 한다.

9. 42.195km 마라톤을 뛰는 자들을 보아라. 거리가 멀다고 가다가 쉬지 않는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서둘러 뛴다. <휴거>도 그러하다.

10. <휴거>는 때 늦으면 못 한다. 고로 <휴거 때>는 계속 서둘러야 된다. 언제까지? 휴거가 끝날 때까지다.

11. 초반에 느슨하게 하면,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는 준비할 시간이 짧아서 자기 영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 또 초반에 서둘러 시작했는데 과정 중이나 끝에 느슨하게 하면, 역시 시간이 부족하여 자기 영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 완성할 때까지 서둘러라!

12. 한 시간에 해야 될 일을 놓고, 시작할 때 10분 늦게 했다 하자. 50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니 불가능하다.

13. 처음부터 서둘러라. 급하다. 끝날 때까지 서둘러라. 그래서 “휴거는 급하다.” 하면서, 지금도 “급하다. 서둘러라.” 하는 것이다.

14.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서둘러 행하신다.

15. 선생이 21년 동안 산에서 굴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울 때 춥고 덥고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성자는 21년의 그 긴 기간 동안 “급하다.” 하시며 매일 서둘러 행하게 하셨다. 21년이 끝나니, 또 “급하다. 네가 내게 배운 것을 빨리 외

쳐라. 6월이 오기 전에 서울까지 가야 된다.” 하셨다. 무엇이 그리 급하냐고 물으니, “성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기에 지구 세상 전체 시간에 맞춰야 된다. 네가 묻은 것에 대답할 시간도 없다. 빨리 가자.” 하셨다. 그래서 서둘러 도표를 제작하여 천안 배방산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1978년 5월 31일에 서울에 갔다. 서울에서 자고 일어나니, 6월 1일이었다. 하나님 역사의 ‘한 때 두 때 반 때’에 맞춰야 하니, 그리 급하다고 하신 것이었다.

16. 창자가 터져 병원에 갈 때는 가기 시작할 때부터 급하고, 가는 도중에도 계속 급하다 한다. 병원에 들어가서도 급하고, 의사들도 급히 움직인다. 다 치료될 때까지 계속 급하다. <휴거>도 그러하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급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거의 다 했는데, 종이 ‘땡’ 하고 쳐서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를 못 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처음부터 나중까지 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 수영, 육상, 카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운동경기를 보아라. 시작부터 끝까지 급하다.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 바로 패한다. 이와 같이 <휴거>도 시작부터 끝까지 급하다. 하루의 삶도 그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그렇다. 놀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하면서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해라.

18. 낮 1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쓰던 글을 매듭짓다가 10분 정도 늦었다. 성자가 “급하다.” 말씀하시기에 “10분 후부터 할게요.” 하고, 10분 후부터 기도했다. 성자는 “펜을 잡아라.” 하시고, 주실 말씀을 주셨는데, “10분 지나간 것은 못 쓴다. 이미 지나갔다. 다음 것부터 쓰자.” 하셨다.

19. 성자께 “휴거 때는 사랑하는 자도 챙길 시간이 없겠네요.” 하니, 성자는 “따라오는 자들에게만 결눈질하며 가야지. 너 자신을 챙겨야지, 누구를 챙기냐. 저마다 팬텀기 조종사가 하늘에서 팬텀기를 몰고 가듯, 휴거 때도 자기 혼이 자기 영을 조종해서 가야 된다. 급하다.” 하셨다.

20.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는 그 성의 ‘롯’을 찾아가 “급하다.” 재촉하며 “어서 이 성을 빠져나가라.” 했다. 롯이 여유를 부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 천사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을 알고 롯의 손을 확~ 잡고 끌어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급히 가라. 뒤돌아보면 죽는다.” 했다. 소돔 땅을 빠져나가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넘어질 시간도 없이 뺨뺨이 서서 죽었다.

21. 눈으로 슬쩍 보면 생각이 안 나듯, ‘생각’이라는 눈도 슬쩍 생각한 것은 생각이 나도 슬쩍 나고 바로 잊어버린다.

22. 생각한 것을 외우든지, 글로 써 놓든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든지 해야 후에 가도 보면 기억난다.

23. 기록해 났어도 그 기록한 것을 보는 것마저 잊어버리니, 계속 보이도록 벽에 붙여 놓고 삶 속에서 봐야 된다.

24. 뇌의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결정된다.

25. 의식은 이미 결정한 상태다.

26.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한 것은 행했어도 모른다.

27. 항상 생각할 때 어떤 목표를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생각은 시간처럼 바람처럼 그냥 흘러가 버린다.

28. 성자 생각, 구원 생각, 휴거 생각을 해라. 그 귀한 시간을 놀리지 말아라.

29. 뇌를 좋게 만들려면, 일주일만 생각을 깊이 하고 집중해 보아라. 그러면 뇌가 차원 높은 생각으로 변화된다.

<2013년 11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없앤 것은 영원히 없어진 것이고, 만든 것은 영원히 만들어진 것이다.

2.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죄는 영원히 없어지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영원히 남아 있게 된다.
3. 죄를 회개하여 성자의 육으로부터 성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는 영원히 삭제된다. 그때부터 죄를 다시 만들지 말아라.
4. 악한 자들과 음모자들이 나와 섭리사를 욕하며 인터넷에 각종 거짓된 글을 올렸기에 기도했다.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응답하시기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셨다. 응답을 받고 꿈에 보니, 몇 명의 남자가 한 건물에다 하루 종일 인테리어를 하여 그럴 듯하게 꾸며 놓았다. 그 후에 다시 가 보니, 그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하며, 자기 손으로 못을 빼고 나무를 뜯어서 창고처럼 쌓아 놓고, 짐을 싸서 다른 데로 떠나갔다. 따라가 보니, 지하 침침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다.
5.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숨어서 계획했던 행위를 다 드러내시어 악은 심판하시고, 선은 더욱 드러나 빛을 받게 하신다.
6. 물체도 사람도 ‘전체’를 보아라.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
7. 악은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이 절대 뜻이다. 악한 자들이 음모하면,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심판의 날을 정하신다.
8.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의인들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며, 사탄의 육체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의 육으로 살다가 그 영이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가게 된다.
9. 인생 일생 겨우 자기 구원 이루고 가는 짧은 기간이다.
10. 짧은 인생 길게 살려면,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라. 그러면 10년을 살아도 30년 산 것같이 길게 표가 나게 살게 된다.
11. 사람을 가르치고 다루고 만들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12.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고, ‘뇌’를 보고, ‘마음·정신·생각’을 보고, ‘행실’을 보아라.
13. 양과 산양과 염소다. 신앙 인생도 그러하다.
14. 금강산이 정원이라도 혼자 살면 적적한 것이다.
15. 많은 사람이 하나 될수록 이상세계다.
16. <천년왕국> 때는 성경 말씀대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다.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분체를 맞고, 시대 말씀의 인을 맞은 자들에게만 <천년왕국>이 해당된다. 항상 주관권의 혜택이다. 해당자에게만 말씀이 적용된다.
17. <천국>도 온 인류에게 우선권을 주어 모두 가게 했다. 하지만 천국은 성자를 맞고, 성자가 세상에 구원자로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천국 조건’과 ‘휴거 조건’을 세운 자만 간다.
18. 저마다 삼위 앞에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행해야, 어느 날 “네가 하는 일이 합당하다.” 하며 확실하게 깨우쳐 근본을 말씀해 주신다.
19. 삼위일체는 스스로 삼위 앞에 충성하여 자기가 해야 할 합당한 일을 정한 때까지 한 기간 동안 하는 자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며 근본을 깨우쳐 주시고, 각종 이치를 가르쳐 주신다.
20. 매일 기도하며 기도로 말로 삼위께 경배했다. 3년 동안 빠짐없이 그리했다. 어느 날 성자가 나타나 말씀하며 왜

삼위 앞에 경배하는 것이 옳고 합당한지, 그제야 깨우쳐 주셨다.

21. 여러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그 자녀는 스스로 자기가 부모 앞에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알고 수년 동안 효도했다. 어느 날 부모가 깊은 이야기를 하며 “네가 모든 형제들 중에서 해야 된다. 자식이라고 해서 다 효자라고 할 수 없다. 너는 모든 형제들 중에서 표상이니,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부모의 복을 크게 받았다.” 했다. 이와 같이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다 효도하지 못한다. 그 중에 스스로 알고 행하는 자가 있다. 그가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의 표상이 되니, 그가 삼위께 경배해야 된다. 시대적으로 볼 때 그는 선지자요, 중심자요, 메시아다.

22. 끝까지 해야 벗어난다.

23.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도 받는다.

24. 끝까지 참는 자에게 성자도 나타나신다.

25. 끝까지 참아야 대가를 얻는다.

26. 끝까지 새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따라와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섭리사에 행하시는 별의별 희한한 일을 다 보게 된다.

27. 기도도 끝까지 해야 할 때마다 별 희한한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영계의 각종 것들을 보게 된다. 깨달은 것도 본 것과 같다.

28. 길을 잘못 내어 놓고 쓰면, 고칠 때까지 고생이다.

29. 저마다 길을 잘못 들이고 살면, 고칠 때까지 고생이다.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매우 중요

1.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 세상에 ‘중력’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활동하기 힘들어서 못 산다.

2. 지구의 공기와 산소도 ‘중력’으로 인하여 존재한다.

3. ‘중력’으로 인해 몸이 그리도 쉽게 움직여진다.

4.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날아가다가도 청천난기류를 만나면 일순간 공중에서 50m, 100m 떨어졌다가 정상적 기류에 가서 다시 제대로 날아간다. 공기의 힘이 이렇게 무섭다.

5. 자기 힘만으로는 서 있지 못한다. 활동하지 못한다. 중력, 산소의 힘, 공기의 힘으로 사람이 합당한 만큼 힘을 받아서 존재한다. 창조주가 어떻게 지구에서 인간이 살게 하셨는지, 그 신비함을 알고 감사하고 사랑해라.

6. 지구는 지구 무게만큼 중력을 받고, 사람은 사람 무게만큼 중력을 받고 산다. 공기가 들어 있는 풍선이 공중에 떠 있듯이, 지구는 그 무게와 부피만큼 중력을 받기에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다.

7. 전능자 하나님이 지구에 인간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와 이치를 인생들은 평생 가도 모르고 살다 죽는다.

8. 하나님이 그같이 해 주었어도 인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이는 마치 애인이 배신하고 갈 때의 충격과 같다.” 하셨다.

9.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은 실상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육으로 살다가 생이 다하면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며 “마치 열매 없이 꽃만 피우고 끝나는 꽃나무는 꽃이라도 만족하듯이, 그들은 육체 삶이라도 쳐다보고 대하고 끝난다.” 하셨다.

10. “나 여호와와는 나를 믿고, 내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을 대하는 기쁨과 사랑으로 지구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대하고 산다.” 하셨다.

11. 지구 세상의 거의 모든 인생들은 땅에서 육신의 삶으로 끝날 자들이다.

12. 육신이 땅에서 육신만 위해 살면서 육적 낙만 누리고 살던 자들의 영은 모두 고통의 흑암 세계로 가고 만다.

13. 세상 쪽 <외적 관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땅의 메시아’를 한 명도 알지 못하면, 땅의 메시아는 하늘과 땅, 즉 영과 육에 속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14.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를 한 명도 알지 못하면, 성자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15.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맞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끝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성자’가 왔을 때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한 명도 맞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無)가 되고 성자와 그 육이 되는 자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 다시 비유를 들면, 마치 황태자가 사랑의 대상을 찾는데 대상이 될 여자가 한 명도 없으면 실망하고 가는 격이다. 하늘의 수종을 들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는 시작된다.

16. 구약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맞았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맞았고, 이 시대 성약 때는 ‘성약 때 예비된 자, 분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맞았기에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17.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상에 ‘뜻’을 이루려 오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맞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뜻을 펴셨다. 하나님을 맞은 자는 시대에 따라 선지자, 중심인물, 메시아였다.

18. “세상 쪽 <외적 관원> 중에서 ‘하나님이 보낸 땅의 메시아’를 한 명도 알지 못하면, 땅의 메시아는 하늘과 땅, 즉 영과 육에 속한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다. (다음 잠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 더 반복)

19. 분체 앞에 신앙 쪽 <내적 관원>이 있다. 곧 분체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다.

20. 이 시대에 다시 오신 <성자>는 온 세상 종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조건을 세워 ‘성자의 신부가 된 자, 곧 성자의 분체가 될 자’가 맞는다. 또 성자의 육이 되는 <분체>는 ‘분체의 분체 된 자’가 맞는다. 곧 ‘두 증인’이다. 만일 두 증인이 <분체>를 제대로 모르고 못 맞으면, 마치 <관원> 중에 한 명도 주를 알지 못해 십자가를 진 것같이 또 내적 십자가를 져야 한다. 분체 앞에 ‘두 증인’, 곧 <내적 관원>이 있어야 <내적 섭리>를 편다. 고로 전체 관원 중의 한 명 격인 ‘두 증인’이 그리도 크다. 그로 인해 <내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마치 정자 중의 하나만 난자와 맞아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두 증인’은 분체를 100% 확실히 알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한다. 그들은 한 쌍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되어 분체를 증거한다. ‘두 증인’은 예수님 앞에 바울과 베드로와 같고, 모세 앞에 아론과 훌과 같다.

21. 성경 역사를 보면, <세상 관원> 중에서 ‘한 명’도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시대마다 하늘 편은 무지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역사를 펴 왔다. 그러나 <내적 하늘 편>에서는 시대마다 알아서 주를 알고 맞았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 나가신다. 구약역사도, 신약역사도, 성약역사도 그러하다. <세상 관원> 중의 ‘한 명’도 주를 알아보는 책임을 못 하여, 그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22. ‘성자 분체’는 성자 앞에 <신앙 관원> 중의 한 사람과 같다. 그가 성자를 100% 알고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으로 다시 오신 성자를 맞았기에, 하늘의 성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한 것이다. 그는 신부로서 성자를 맞았다.

23. 세상 쪽 <외적 관원> 중에는 한 사람도 몰랐기에 성자는 외적, 육적으로는 시대 십자가를 지셨다.
24. 성자 본체를 따르는 자들 중에서 세상을 대표하여 본체를 100% 알고 맞은 자가 관원 중의 한 명에 속한 자가 된다. 곧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은 내적 증인 한 명, 외적 증인 한 명이다. 그들도 신부다.
25. 항상 ‘관원 중의 한 사람’이 성자 상대, 본체 상대가 되어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성자도 본체도 십자가를 안 지고 역사를 펴게 된다. <내적 관원>, <외적 관원>이다.
26. ‘성자 앞에 관원 중의 한 사람’은 <본체>다. 그는 시대를 대표한 자로서 성자의 신부다. 그가 다시 오신 성자를 맞으면, 시대 전체가 성자를 맞은 것으로 보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도 성자를 알고 믿고 따라오게 하는 조건이 성립된다.
27. ‘본체 앞에 내적 증인, 외적 증인은 내적 관원 한 사람’으로 본다. 곧 <두 증인>이다. 그들이 본체를 알고 맞으면, 따르는 자들 전체가 본체를 맞은 것이 된다. 그들이 본체를 증거해 주는 만큼 사람들도 본체를 믿고 따라오게 된다.
28. ‘관원 중의 한 사람’이 참으로 중하다. 내적 관원 한 사람, 곧 두 증인은 마치 주 앞에 오른손과 왼손 같다. 마치 부모 앞에 아들과 딸 같다.
29. 주 앞에 내적 관원, 즉 ‘두 증인’은 마치 차와 포클레인 같다. 포클레인이 흙을 들어 차에 실으면 차가 옮기듯 하며 행한다. 둘이 하나 돼야 전체가 하나 된다.
30. 하늘 편 아벨 쪽에서는 전체 중에 대표가 되는 내적 관원이 주를 알고 맞았다. 그러나 상대 쪽인 세상 편에서는 주를 모르고 못 맞았다. 고로 가인이 되어 아벨을 괴롭게 했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새 역사 구원의 문이 닫혔다.
31. 예수님 때 ‘제사장 관원 중의 한 명’과 ‘정치 관원 중의 한 명’이 예수님을 알고 맞았어야 했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32.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인식이 없는 것은 천 리나 떨어진 것처럼 감이 없고, 딴 세상처럼 느끼고, 아무것도 없는 무(無)로 여긴다.
33. 본체를 제대로 안 <내적 관원>, 곧 ‘두 증인’과 모두 하나 돼야 한다. 이것이 절대 성자가 원하시는 법칙이다. 그래야 휴거가 쉽게 된다. * 섭리의 두 증인도, 섭리 사람들도 이 말씀을 늘 ‘지침’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가르쳐라. ‘두 증인’은 <내적 관원 한 사람>에 해당된다. 고로 전체가 일체 되어 서로 뭉치게 해 줘야 된다.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나의 마음과 같아라.
2. (성자) 새벽을 깨우는 것이 내 마음이며 내 생각이다.
3. 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듯 ‘실천’이다!
4. 합당하지 않은 자는 버림을 받는다.
5. 가치를 모르면 함께하지 못한다.
6. 말씀 듣고 감동받고 각오한 것을 현실에 꼭 실천해야 된다.

7.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에게 배신을 당하셨다.
8. “나중에 하겠다.” 하지 말아라. 생각났을 때가 행할 때다.
9. 급한 것만 처리하고 그냥 가 버렸다가, 다시 또 온다.
10. 급하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화장실 오듯이 섭리사에 또 온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11. 때를 놓치고 다시 행한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
12. 남자가 좋아할 때 여자가 남자와 아예 같이 살아야 하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살았다. 그러고는 그 후에 다시 그 남자에게 돌아와 산다. 세상으로 갔다가 섭리사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이와 같다. 내 앞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와, 과정 중에 안 하다가 다시 하는 자는 전혀 ‘차원’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다.
13. 사탄을 이기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만,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한다.
14. 자기 ‘각오’와 ‘신념’으로 자기를 바꿔 봐라!
15. 주를 꼭 잡기만 해도 주를 따라 방향이 돌아간다.
16. 때가 있다. 그때를 맞춰야 된다.
17. 네 욕이 범죄 하면 네 영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욕이 자꾸 범죄 한다.
18. 자기만 크다고 생각 말고,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 말아라.
19. 작은 죄도 죄다. 다 고하여 없애라.
20. 허락하지 않은 길인데, 왜 고생하면서 그 길을 가냐. 그 길은 순간에 끝난다. 끝이 보인다.
21. 모르는 자는 몰라서 못 한다 해도 아는데도 왜 안 하나. 자기가 조금씩 안 한 것으로 인해 영원한 고통 길이 결정되어 그 길을 간다.
22. 주는 화가 나도 참는다. 너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다. 너를 휴거시켜야 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 행해라.
23. 시대의 주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도 인생들에게 사랑을 구걸한다. 그를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해서다.
24. 마음과 생각이 주를 향하지 않고 딴 데로 향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25. 걸어서는 주를 못 따라간다. 긴장하고 서둘러 뛰어야 따라간다. 뛰다가 지치면 급한 걸음으로 따라가야 된다.
26. 네가 넘어지면 너 때문에 뒷사람도 걸려 넘어진다.
27. (성자) 너는 나를 옆에 놓고서도 네 일만 하고 네게 좋은 것만 행하느냐. 나에게는 너를 휴거시킬 시간밖에 없는 데, 네가 그 시간을 다 소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구원도 휴거도 못 시킨다.
28. (성자)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손도 잡고 마음도 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사니, 실상은 마귀 손을 잡고 마귀에게 마음을 주면서 사는 꼴이다. 너희가 그 실상을 본다면 간 떨어질 것이다.

29. (성자) 나 성자는 너희가 내게 와서 말 걸어 주기를 기다린다. 1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30. (성자) 내가 나 성자를 부르며 계속 말하면, 나 성자와 말의 시동이 걸린다. 그리고 나의 음성이 네 마음에 들린다.
31. 세상 것과 이성 사랑은 현실에서는 미쳐 좋아해도 시간이 가면 질려서 스스로 버린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자기 영을 구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갔다.
32. 욕은 자기가 천국에 못 가니 욕만 위해 살다 죽으려 한다. 욕은 썩으면 끝나니 지옥에 안 간다. 마음과 정신과 혼과 영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간다. 그러나 욕을 통해서 혼과 영이 만들어진다. 고로 '욕'을 쥐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
33. 사람이 추운 데서 더운 데로 왔다 갔다 하면 계절이 바뀔 때같이 감기에 걸리듯이, 마음과 몸이 신앙 쪽으로 세상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욕도 영도 감기 같은 병에 걸린다.
34. 주는 죄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가 지옥에 가니 용서해 준다. 그러나 매번 자주 죄를 지으면, 그 영은 상처투성이가 되어 신부 자격이 없게 된다.
35. 주만 붙잡고, 세상에 마음을 끊고 가야 된다.
36. 성자와 주를 붙잡고 다니지 않는 자는 사탄을 붙잡고 사탄과 동행하고 다닌다.
37. 흐지부지하면 그대로 끝난다.
38. 영계에 들어가서 봐라. 성자가 흘리는 눈물은 욕계에서는 못 본다.
39. 농부가 최선을 다했어도 열매를 열지 못한 과일나무는 어찌 할 수 없다. 열린 열매만 거두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40. 욕의 때는 낮도 밤도 알지만 영의 때는 영의 세계의 소경이면 모른다.
41. 마음의 눈, 심령의 눈, 깨달음의 눈을 떠라. 해가 뉘엿뉘엿 지니 산짐승들이 내려온다.
42. 산짐승을 만나기 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주 품으로 빨리 돌아와라.
43. 품종은 사과나무인데, 열매는 앵두만 하게 열렸다. 빨리 주에게 붙어서 커라.
44. 성자는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않은 자, 열매 맺은 자와 못 맺은 자, 순종한 자와 안 한 자, 주 품에 있는 자와 주 품을 떠난 자로 가르신다.
45. 그 날에 행위대로 갈려 간다.
46. 왼쪽은 영원한 사망길이다. 주가 자기와 함께하면서 가는지 보아라.
47. 시대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사망길로 갈 때, 성자도 주도 더 애간장이 탄다.
48. 성자도 주도 심정을 알아주는 자에게만 말한다.
49. (성자) 내가 말할 때만 순간 생각나고 끝난다. 그 말이 맞는지, 모두 심령의 눈을 떠서 보아라.

50. (성자) 네 마음·정신·생각이 잠 세계에 떠 있게 하지 말아라. 나의 육과 일체 되어 그와 접붙인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기도해라. 나는 이런 기도에 만족하여 그 기도를 100% 취한다.

51. ‘빛’도 한 줄기, 한 줄기 실 가닥같이 모여 큰 빛줄기가 돼야 흑암을 몰아낸다.

52. 기도하면 자기 빛줄기가 밝아진다. 그 빛을 가지고 더 빛을 찾아 빛으로 나오게 된다.

53. 주는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 슬픈 마음을 들으면, 모두 힘을 잃고 쓰러질까 봐서다.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자!

54. 구원자는 갇은 힘을 다해 절벽에서 생명 보따리를 끌어올리느라 젖가락을 들 힘이라도 더 필요해서 애가 탄다. 구원받는 자들은 황우 같은 힘이 있는데도 구원자의 심정을 모르니 힘을 안 준다. 너무 이같이 하여 구원자가 전체를 감당하지 못하니, 그중에서 주의 심정을 모르는 자는 골라내고 감당할 자들만 끌어올려도 모른다.

55. 구원받고 휴거될 힘이 있는데도 안 하니, 어쩔 수 없이 명단도 얼굴도 안 보고 무게만 달아 보고 빼고 있다. 깨달아라!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56. ‘차원’을 계단을 오르듯이 높여라. 한 단계씩이다.

57. 차원을 높이려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

58. ‘목적’을 두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된다.

59. 자기 관리 중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다.

60. 모든 문제의 답은 ‘말씀’으로 나간다.

61. 말씀을 행하는 만큼 행실의 차원이 올라간다.

62. ‘감각과 감동 속의 행실’이다.

63. 네가 스스로 성자를 최우선으로 하는지 확인해라.

64. 고칠 것을 고쳐야 차원이 높아진다.

65. ‘인본주의’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66.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 행해야 천주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67. 성자가 안 보여도 의식하고 생각해야 성자를 중심하게 된다.

68. 습관을 들여야 아주 쉽다. 습관이 안 된 것은 어렵다.

69. 성자 심정, 주 심정 값이 그리도 비싸다. 그 심정을 받으면 산도, 강도, 바다도 뛰어넘는다.

70. 심정을 받으면 다 이해되고, 영계를 못 봐도 느껴 알게 된다.

71. 알고 믿어라.
72. 모르고 믿으면, 맹목적 신앙이며 진리 없는 신앙이다.
73.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되지 않는다. 이는 육적 영적 지능의 차이이다. 기도하여 깨달아라!
74.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그릇대로 자기 주관대로 이해한다.
75. 신령한 소리는 신령한 뇌에 담긴다. 신령한 소리를 육적인 것으로 들으면, 신령한 것이라도 육적 그릇에 담긴다.
76. 신령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신령한 말도 육적 그릇에 담긴다.
77. 시대 말씀은 신령한 하늘의 소리, 신의 소리다. 그러나 왜 신령한 소리로 듣지 못하는가? 듣는 자가 육적으로 듣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자의 기도와 신령함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78. 반드시 육으로 들을 말인가, 영으로 들을 영적인 것인가 알고 들어야 된다.
79.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려면, 그 '육'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 줘야 된다. 육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영이 살아난다.
80.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죽은 영혼을 살린다.
81. 인간적으로 잘해 주는 사랑의 관리와 육적 이야기로는 결국 생명 손실을 보게 된다.
82. 성자를 사랑해야 성자에게 생명이 붙는다. 사랑의 진액으로 접붙임이 된다. 고로 그의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83. 종급 사랑, 자녀급 사랑으로는 못 살아난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성자를 사랑하는 신앙이어야 살아난다.
84. 구시대에는 하나님과 성자 앞에 자녀급 사랑을 하니, 못 살아난다.
85. 집념과 신념의 뿌리가 성자께로 뻗어 가지 않으면, 아무리 관리를 해 줘도 죽는다.
86. 성자 사랑의 진리가 이 시대에 최고 차원 높은 진리다.
87. 섭리사에서 최고로 수준이 높고 깊은 진리는 '성자를 사랑하라.'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88.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혈통이 안 되듯이,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자의 신부가 안 된다.
89. 하나님은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역사를 완성하신다.
90. 사람은 아는 만큼 행한다. 고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무서운 것이다.
91. 영계에서도 아는 만큼 누리며 산다.
92. 배우는 힘이 그리도 크다. 주께 제대로 배워라.
93.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모르는 만큼 '영'이 고통을 당한다.
94. 육이 세상에서 살 때, 배우고 가야 된다.

95.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
96. 성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자는 신의 마음이 되어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다.
9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알고 대하는 자는 천국으로 가고, 모르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
98. 아는 만큼 성자와 주가 그의 욕으로 마음으로 쓴다.
99. 아는 만큼 정신 차리게 되고, 마음이 움직이고, 욕이 움직인다.
100. 아는 만큼 급이 올라간다.
101. 모르면, 자기 인생 모르는 대로 흘러간다.
102. (성자) 본체를 알아야 나 성자를 제대로 안다.
103. (성자) 나 성자에게 오는 열쇠는 본체다.
104. (성자) 나 성자의 사랑을 내가 보낸 자를 통해 배워라. 정확하다.
105. 꼭대기에 못 올라가더라도 오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야 된다. 그래야 심판을 벗어난다.
106. 물 심판하여 어느 선까지 물이 차올라 온다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올라야 된다.
107. 신부는 신부 차원까지 올라야 되고, 그 차원까지 올라야 거기서 불이 일어난다.
10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의 본체'라서 '사랑'으로만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
109. '영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는 세계이고, 사람의 행실이 보이는 세계다.
110. '기도'는 성자를 따라가는 행위다.
111. 한 남자가 미인을 보고 마음이 끌려 따라갔다. 자기가 생각지 못한 데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그 집까지 따라갔다. 정신이 나가서 그 미인이 들어가는 방까지 따라 들어갔다. 그러다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미인은 남자가 왜 자기를 따라왔는지 그 사연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합당하면, 미인은 그 남자를 사랑해 준다. / '성자'를 미인으로 비유했다. '성자'는 사랑과 진리와 구원의 미인이니, 그에게 매혹되어 이같이 따라가야 된다. 어디까지? 성자의 집까지 따라가야 된다. 땅의 구원자도 그같이 좇아야 된다.
112. 성자와 사랑에 빠져서 가야, 자기 주관을 벗어나 성자 주관으로 간다.
113. 기도하기 전에 성자의 마음과 생각에 맞는 기도인지, 먼저 방향을 잡고서 해라.
114. 성자는 '과녁판'이고, 우리는 '활을 쏘는 자'다. '기도'라는 화살로 '성자'라는 과녁판에 활을 쏘라. 성자의 마음과 생각과 같은 기도를 해라.
115. 기도하는 데는 환경이 중하지 않다. 집에서도 제대로 기도하면 성자와 통한다. 평소 매사에 성자를 모셔라.
116. 평소에 성자를 멀리하는 자는 좋은 장소에 가셔도 성자와 잘 못 통한다.

117. 사랑하는 자는 금방 통한다.

118. 사랑하는 자는 평소에 성자의 정신과 생각으로 늘 성자와 통한다. 그리움, 보고픔, 관심, 호기심, 좋은 파장, 사랑의 파장으로 계속 성자와 통한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19. 기도나 성자와 통하는 말은, 필요하면 환경과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하는 것이다. 성자의 응답이 없어도 천사가 전달하니, 성자에게 다 전달된다.

120. 성자에게 맞추어 기도하며 대화할 때다.

121. 기도를 깊이 하여 성자의 말이 자기에게 전해지는지 확인해라.

<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22. 사랑 관리를 철저히 해라. '사랑'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고로 아예 송아지 묶어 놓듯, 사랑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꽂꽂 묶어 놔야 된다.

123. 이성 생각을 하고, 성적 생각을 하고, 각종 음란물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한다. 아니다. 사탄의 뜻이다.

124. 이성 죄를 짓던 자들은 모두 자기 생각으로 헛계시를 받아 '이것도 주님의 뜻이다.' 하며 이성 관계도 했다. 모두 사탄의 유혹이며 사탄의 행위였다. 후에 자신들도 자기가 헛계시를 받고 죄를 지은 것이라며 시인했다.

125. 사탄은 이성의 행위를 하게 유혹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자의 뜻이다. 네 선생의 뜻이다." 한다. 그것을 믿은 자들은 다 속았다. 사탄은 항상 이같이 속여 왔다. 절대 속지 마라.

126. 첫 느낌, 첫 마음이 귀하다. 이것을 표준 하여라.

127. 섭리사 최고 법은 '사랑'이다. '100% 성자 사랑'이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휴거도 제대로 못 이룬다.

128. 마음으로만 성자를 사랑하지 말고 행동해라.

129. 성자를 사랑하듯,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130. 섭리 사람들 중에서 '사랑의 서운함'을 타는 자들이 많다. 사랑은 자기가 성자와 주를 사랑함으로 행위대로 받는다. 남이나 형제들이 성자와 주께 사랑받는 것은 자기가 전혀 상관 말아야 된다.

131. 자기가 책임 못 해 사랑을 못 받았는지, 기도하며 확인해야 된다.

132. 사랑의 감수성은 자기가 성자를 충만히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온다.

133. 사랑을 충분히 줬는데 그 사랑을 관리하지 못해서 사탄에게 뺏기고, 마음을 못 채워 사랑의 소외감을 갖는 자들이 많다.

134. 성자는 똑같이 사랑해 주고 관리해 줬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자기가 성자를 더 사랑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가 더 많은 사랑을 못 받았다. 영계에 가서 보면 확실히 보인다.

135. 누가 선생에게 “왜 저 사람을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해 주세요?” 하고 물었다. 이에 “그것이 아니다. 사랑은 똑같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사랑의 소외감을 갖는 것이다. 혹여 내가 더 안 사랑해 주더라도 본인만 나를 사랑하면 소외감이 없어진다. 하나님과 성자께도 그러하다.” 했다.

136. 선생 어렸을 때였다. 형들이나 교인들은 부흥집회를 하면 늘 환상 보고 방언 받고 필기의 은혜를 받아 방서 쓰고 또 산기도를 가서 모두 환상 봤다. 나는 하나도 못 보고 잠자면 꿈이나 조금 꾸었다. 정말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만나면 “너는 받았나?” 하면 못 받았다고 했다. 회개하고 기도 더 하라고 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충성도 하는데 못 받으니 더 있다가 주려나 했다. 그리고 그들 받은 것을 칭찬해 줬다. 방언하면 신기했다. 나도 받도록 기도했다. 나는 말씀 은혜를 노력으로 받으려고 성경만 더 읽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후 하나씩 하나씩 이상한 짓을 하고 영들이 들렸다. 한번은 보니 주님 영이 그들을 쫓아다니는데 순간 보니 발이 시커멓다. 사탄임을 알고 모두 전해 주고 기도해 줬다. 그리고 계속 자세히 하는 것을 보니 이성으로 유혹했다. 사탄은 꼭 이성 유혹을 근본으로 한다. 그 여자는 나와 결혼하는 것이 예수님 뜻이라고 하며 자꾸 나를 껴안았다. 사탄은 늘 성적 타락과, 진리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137. <사랑의 소외감>은 자기가 책임분담을 못 한 것으로 인해 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오고,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는 자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에 온다.

138. 한번은 어떤 제자에게 옷을 사 주었는데, 이 말을 들은 어떤 제자가 왜 자기는 옷을 안 사 주고 저 사람은 사 줬냐고 하며 참다못해 솔직히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하며 섭섭하다고 했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듣고 미안해하고 민망해할까 봐 “너도 받도록 기도해.” 했다. 사실 옷을 사 준 제자는 내가 어려울 때 자기 옷도 안 사 입으면서 현금을 한 자였다. 그런데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다니기에 그 제자가 현금한 돈에서 옷을 사 준 것이었다.

139. 한번은 어떤 제자가 자기 옆의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애는 자기보다 공적도 없는데 100만 원이나 주고, 왜 자기는 안 주냐며 소외감을 갖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미안해하며 쓰러지고 말 것 같아서 “기도해 봐. 깨달음이 온다. 너도 받도록 기도해라.” 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암인데, 수술비가 부족해서 건강 지원금으로 도와준 것이다.

140. 한번은 한 제자에게서 톱툰이 모은 돈 500만 원을 현금한다고 편지가 왔다. 사실 아빠의 몸이 아프지만 믿음으로 낫겠다 하고 현금하니, 선생도 기도해 달라고 했다. 그 후 그의 아빠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교역자를 통해 받았다. 그래서 그 전에 현금한 500만 원 중에서 60%를 내주게 했다.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소외감을 가질 것이다. 모르면, 사탄은 소외감으로 역사한다.

141. 하나님께 적금 들고, 나중에 타 간다고 생각해라.

142. 몰라서 소외감이 오고, 욕심 때문에 소외감이 오고, 자기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자기 책임을 못 해서 소외감이 온다.

143. 사랑을 이해하거나 아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아라. 깨달아라. 깨달아야 뇌에 확 박힌다. 깨달아야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서 뇌에 도장을 찍듯이 하게 된다. 깨달아라!

144.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난다.

145. <아는 지식의 차원>은 마치 남녀가 서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단계와 같고, <깨달는 차원>은 마치 남녀가 마음이 불타서 사랑하여 생명을 잉태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단계와 같다. 아는 지식의 차원과 깨달는 차원은 이같이 차이가 있다.

146. 신랑 되신 성자는 신부에게 사랑을 주시니, 늘 그 사랑을 관리해야 된다. 사탄이 알고, 그 사랑을 노린다. 아담 때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랑을 사탄이 노렸다가 뺏었다. 고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사라졌다.

147. 사탄은 ‘사랑 사냥꾼’이다.

148.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아라. 하나님과 성자가 어떻게 사랑을 주시는지 보아라. ‘말씀’으로 준다. 기도할 때 ‘뇌’로 ‘정신’으로 준다. 그 사랑을 뺏기지 않도록 믿어라. 안 믿으면 뺏긴다. 말씀을 주면, 성자가 너에게 계시한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삼아라.

149. 사랑도 제대로 못 쓰면 무용지물이다. 맞는 대상에게 사랑을 써야 된다. 대상은 ‘성자’다.

150. 철을 가지고 가만히 두면 철로만 쓰고 끝나고, 차를 만들면 차가 된다. 만드는 대로 된다. 이와 같이 ‘사랑’도 그냥 쓰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써라.

151. <사랑의 목적>은 ‘구원’이다. ‘휴거’다.

152. 사랑을 가지고 돈 사랑, 게임 사랑, 이성 사랑, 자기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면 구원을 못 이룬다.

153. 사랑을 최고의 천주적 가치로 쓰려면...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사랑, 시대 보낸 자 사랑, 공의롭게 형제 사랑을 하며 써라.

154. ‘자기 사랑’을 1조의 돈이라 생각하고,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세상을 위해 자기 사랑을 쓰면, 소모품 사랑에서 끝난다. 고로 그 사랑은 아무리 다 투자하며 썼어도 결국 남는 것이 없다. 자기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면서 써라. 그러면 영원까지 간다.

155. ‘사랑’을 가지고 육적 쾌락에 쓰지 말아라. 첫째,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하는 데 써라. 둘째, 사망으로 가는 영혼을 살리며 말씀을 전하고 관리하는 데 써라.

156. 마이너스극 하나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플러스극과 일체 되어 작동할 때 전기가 들어온다. 이와 같이 ‘사랑’은 상대가 서로 사랑해야 사랑의 본질을 느낀다.

157.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 사랑은 수천 가지로 느낀다.

158. 남녀의 육체관계 사랑은 육체 한 가지로만 느끼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은 수천 가지로 느낀다. 무한한 세계다.

159.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로 그 줄을 타고 느껴지고, 만물을 보면서 느껴지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면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느껴지고, 깨달을 때 느껴지고, 진리를 전해 줄 때 느껴지고, 형제를 돕고 어려움을 같이 할 때 느껴지고, 하늘 역사를 위해 희생할 때 느껴지고, 하늘 심정을 받을 때 느껴진다.

160. <세상의 사랑>은 ‘육체 하체의 자극’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뇌와 정신과 생각의 자극’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 그 사랑이 육신에게도 느껴진다.

161. <육체>는 ‘하체’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영체>는 ‘상체 뇌’로 사랑을 느끼게 한다.

162. ‘뇌’로 느끼는 사랑은 <하늘 상(上)차원 세계 사랑>이고, ‘육체 하체’로 느끼는 사랑은 <세상 하(下)차원 세계 사랑>이다.

<2013년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 핵심 - 임시는 괜찮다. / 수고해야 얻는다.

1.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도 평소에는 아무 걱정 없이 존재한다. 비가 오고 장마가 질 때 무너진다. 신앙의 삶도 평소에는 괜찮다. 환난 때 넘어진다. 그러니 좋은 때만 기준하여 신앙을 만들지 말고, 비바람 환난 때도 견디도록 신앙을 만들어라. 노아는 홍수를 예비하고 배를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했어도 살았다. 그때는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었어도 홍수에 다 쓸려 가 죽었다.
2. 사람들은 수고를 안 하고 얻으려고만 한다. 그러니 수고하여 얻는 자들의 것까지 수고 없이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다.
3. 가령 밭이 1000평 있는데, 10명이 100평씩 가지고 있다 하자. 수고하여 더 땅을 파서 개간하면 150평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 200평까지 얻게 된다.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더 얻으려 하니, 작은 조건으로 옆의 사람의 땅을 얻으려고만 한다. 그러니 서로 욕심이 생기고 인심이 사나워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4. 100평의 농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수고하여 산을 더 사서 개간하면, 200평, 300평의 농토를 얻게 된다. 신앙의 영토도 그러하다. '수고하여' 신앙의 영토를 넓혀라!
5. 수고하면 100%가 된다. 수고 안 하고 얻으려면 못 얻는다. 수고 안 하고 얻었다면, 그는 '무력'으로 얻은 것이다.
6. '수고'는 돈이다. 값이다. 값을 줘야 못 얻을 것을 얻는다.
7. <천국>은 자기 욕이 땅에서 수고하여 영이 얻는 세계다.
8. <천국>은 영이 영원히 사는 곳이다. 욕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영이 천국에 가는 일은 없다.
9.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살고 있는데, 수고하지 않고 곡식이 생기고 열매가 열리겠느냐. 땅을 개간하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한 기간 동안 수고해야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된다. <구원과 휴거>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수고해야 얻는다.
10. 산골짜기에서 혼자 살아도 과일을 얻으려면, 과일나무를 사다가 심고 3년 동안 가꾸야 과일이 열려 따 먹게 된다. 수고하면 얻는다. / 천국에 가는 것도 수고해야 된다. 자기라는 인생 과일나무를 키워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원자를 통해 주는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지키고, 성자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하며 자기를 키워라. 그러면 '영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열매의 주인이 되는 성자가 그 열매를 취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11. 온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봐라. 무엇을 얻겠느냐. 거리에 나가 생명을 찾아봐라. 말씀을 전해 봐라. 생명을 구원해 봐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만일 거기서 못 얻으면, 얻을 수 있는 위치까지 가 보아라. 그러면 더 가능성이 있고, 더 좋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12. 종일 수고하여라. 성자와 주와 같이 수고하여라. 그 좋은 몸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얻는 것이 없다.
13. 수고해도 욕에 속한 것만 행하면 욕에게만 영향이 가고, 욕만 얻고, 그때 순간의 도움으로 끝난다. 욕신이 수고하더라도 영원히 남을 영원한 것과 네 영을 위해 수고하고, 성자의 뜻을 좇아 수고하여라.
14. 고생돼도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행하여라.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과일 열매가 아니다. 보람찬 각종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15. 세상의 썩는 문화를 즐기며 썩는 화면만 보면서 좋아서 웃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무지하다. 그 영혼이 자기 욕신과 함께 사망으로 간다.
16. 썩는 문화는 없어지라고 매일 기도한다. 인생 영혼들을 망치게 하고 사망으로 가게 하기 때문이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 돌리는 선의 문화, 영원한 문화는 하면 할수록 영이 빛나고, 천국의 영으로 변화된다.
18. 썩는 문화가 화면에 뜨면, 모두 손을 얹고 기도하여 흠어지게 하여라. 많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가게 하는 사망권의 문화다.
19. 썩는 문화를 즐기며 사는 자들은 그 영혼이 사망에서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육이 그것을 즐긴다.
20. 육신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무지하여 육신 세상을 천국같이 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사망의 삶을 산다. 그렇게 세상 즐거움 속에 살다가는 육신도 젊은 날의 기회를 놓치고 탄식하다가 그 영혼을 빛나게 변화시킬 기회를 얻지 못한다.
21. 육신의 썩는 문화로 영혼을 병들게 한 자들은 사망에 깊이 빠져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거기서 받는 고통은 너무 크지만,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겪으면서 살게 된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은 연고요, 믿었어도 육신에 속해 산 연고다.
22. 육이 완전히 행하여 완전히 변화된 영만 천국에 가게 된다. 거기서 영원한 기쁨과 이상을 누리며 살게 된다.
23. 처음에 서 있던 생명도 어느 한 날에 힘없이 넘어간다. 다시 관리하고 완벽히 세워라.
24. 세상의 육신은 밥을 먹을 때, 그때는 괜찮다. 밥을 먹었어도 시간이 가면 다시 배가 고프다. 이와 같이 신앙도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할 때는 괜찮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넘어진다. 고로 연속해서 살피기다.
25. 땅의 존재물들은 처음에는 괜찮다. 시간이 가면 넘어진다. 못 견딘다. 계속 관리다.
26. 매달린 자는 처음에는 괜찮다. 시간이 가면 떨어진다. 신앙도 그러하니 지속적인 자기 관리, 형제 관리, 생명 관리다.
27. 완전하게 해 놔야 원하던 그 존재물이 존재할 때까지 존재한다.
28. 첫사랑 때는 100% 괜찮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사랑이 식어 떨어진다. 지속적인 관리다.
29. 영원하게 존재하게 관리다.
30. 사랑할 때는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변한다. 그것이 문제다.
31. 당장은 괜찮다. 그때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서 사랑이 변하면 문제다. 고로 완벽하게 하여라.
32. 서로 좋아서 대화할 때는 괜찮다. 하지만 앞날에 상황이 달라졌을 때는 다르다.
33. 그때는 괜찮다. 하지만 앞날에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르다.
34. 사람도 마음이 맞고 좋을 때는 괜찮다. 마음이 변하면 문제다.
35. 말도 행실도 그 시절 그때에는 괜찮다. 시간이 흘러 시대가 바뀌면 문제다.
36. <충신>도 시대에 가면 역적이 되기도 하고, <역적>도 시대가 가면 충신이 되기도 한다.

37. 늘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하여라. 그러면 시대가 가도 괜찮다.

38. 변질되지 않으면 문제없이 존재하지만, 변질되면 그때가 문제다.

39. 사랑하는 자라도 그때는 괜찮다. 변하면 문제다.

<2013년 11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2. ‘성자’가 오셔도 ‘메시아’가 와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3. 비가 와도 그릇을 얹어 놓은 자에게는 물을 받는 것이 해당되지 않듯이, 주가 왔어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주가 행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4. <휴거>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서 모른다. 준비된 자만 알고 행하여 이론다.

5. 가정에서도 결혼하는 자에게만 <결혼>이 해당된다. 준비하는 당사자가 중요하고, 당사자에게만 경사다.

6.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말하면,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심정만 상하게 된다.

7. <휴거>도 배우고 알고 행하여 준비된 자들만 기뻐하며 희망에 차서 야단법석을 피우며 휴거를 이론다. 다른 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봐도 모르고, 말해도 못 듣고, 증거해도 못 느낀다. 사고가 다른 데 있으니 <휴거>가 귀하다는 것도 모르고 안 한다.

8. 내가 어렸을 때, 해마다 때가 되면 월명동 앞산에서 남자들이 망태를 메고 뭇 캐서 가지고 갔다. 나는 어려서 몰랐다. 후에 알고 보니, 그 비싼 송이버섯이 해마다 한 망태씩 나오니, 아는 자들은 기뻐하며 캐 간 것이었다. 다음 해부터는 선생의 아버지가 이를 알고,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보다 먼저 송이버섯을 캐 와서 늘 먹었다. 나는 그 비싼 송이버섯을 먹으면서 ‘맛도 없는데 이것을 왜 먹지?’했다. 모르고 먹으면, 그 비싼 것도 맛이 없다. 그 후 월명동을 개발할 때 서울에서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고위 관직에 합격됐다고 하면서 귀한 것을 사 왔다고 하며 선물로 줬다. 송이버섯이었다. 그때 당시 한 개에 3만 원씩 주고 사 왔다고 했다. 그때 먹으니, 그렇게도 맛이 있었다. 다 알고 먹으니 맛있는 것이었다. 성자도 분체도 누구인지 알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야 가치 있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따른다. (8번 잠언은 설교자가 전체를 한 번 읽어 주고, 빨간색으로 줄 친 이 부분만 전체가 한 번 더 읽는다.)

9. <휴거>는 예비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행하는 자에게만 해당되어 성자도 분체도 휴거에 대해 알려 주고 이끌어 준다. 지금 <영 휴거>는 진행 중이다. 육이 하늘로 휴거되는 줄 아는 자는 육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믿으니, 영이 하늘로 휴거돼도 모른다.

10. <휴거>는 마치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미치고 혼이 빠져서 관심 갖고 쫓아다니며 연애하듯 하는 자만 하게 된다.

11. 성자와 분체는 자기중심, 자기 주관에 빠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를 보고 “이 사람은 휴거를 원치 않는구나.” 하고, 그 행한 대로 그냥 지나치신다.

12. 하루를 보아라. 새벽예배에 가려고 정말 마음먹고 행해야 가진다. 하고자 하는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하는 자만 된다. 하물며 <휴거>는 어떻겠느냐. ‘혼과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냥 일부만 해서 가지겠느냐.

13. 게으른 자들은 부지런한 곳에는 고생한다고 하며 안 간다. 그들은 게으른 곳에서 살아야 편하다. 그것이 체질이다. 못 고치면, 그 ‘영’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14. 성자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가지도 않으신다. 통하지도 않는데, 가면 뭐하나? / 섭리사 지도자들과 섭리인들 중에서 게으른 자들이 누구인지 선생 머리에 입력되어 있다. 자기가 부지런해져서 선생 머리에 입력된 것을 지우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휴거되지 않는다. / 휴거된 자 중에서 게으른 자는 없다.

<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찾는 것이 보화다.
2. 눈에 보이는 것도 깨닫고 찾아야 보화를 얻게 된다.
3. 가령 바위를 갖다 놓았는데, 그 큰 바위에 하나의 큰 형상이 있어서 그것만 작품으로 봤다 하자. 거기서 또 다른 형상을 찾았다면, 또 하나의 보물을 찾은 것이다.
4. 눈으로 봐도 4차원에 올라 영적으로 봐야 형상의 보물을 찾는다.
5. 형상의 작품은 그 방향에서 봐야 보이니, 그 방향을 모르면 안 보인다.
6. 수석에 형상이 있는데, 수백 명이 그 돌을 보고 갔어도 그 수석에 형상이 있는지 몰랐다. 이는 방향을 제대로 못 찾아서 못 보고 그냥 간 것이다. 뒷사람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에 형상을 보고, 형상의 보화를 찾았다.
7. 사람도 방향에 따라 보물 인생이 있다. 앞뒤만 보지 말고 측면도 보아라. 그 사람의 행위, 사명, 특기, 하늘과의 인연, 사연을 보아라.
8. 새롭게 다른 것을 얻는 것도 보화이지만,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보화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그 의미와 가치를 더 깊이 찾는 자에게는 가장 큰 보화가 된다.
9. 자기 할 일을 찾는 것이 보화다.
10. 해야 할 일들과 안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보화다.
11.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12. 사람은 초침, 분침, 시침 때에 맞춰 시계처럼 움직여야 수고한 대로 얻는다.
13. 찾는 자만 얻는다.
14. 그 센터에서는 더 이상은 얻을 수 없다. 찾았는데 더 없으면, 그 센터에서 차원을 높여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또 찾는다. 또 있다.
15. 그 날 구원해야 될 생명을 찾아라.
16. 물질의 보물도 찾고, 생명의 보물도 찾아라.
17. 육적 차원의 두뇌로 생각하며 찾을 것이 있고, 혼적 영적 차원에서 찾을 것이 있다.
18. 신앙 세계에서 찾을 것이 있고, 육신을 위해 육의 세계에서 찾되 주 안에서 찾을 것이 있다.
19. 저마다 자기 두뇌의 차원대로 보화를 찾게 된다.

20. 자기가 사명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은 것을 찾아서 해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더 좋은 것을 구하고 찾아서 해라.
21. 어떤 것을 만들 때 1단계 차원에서 만든 것과, 2단계 차원에서 만든 것과, 3단계 차원에서 만든 것은 모양과 형태도 다르고,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도 다르다.
22. 받는 내가 성자의 단계로 두뇌의 생각이 올라가야 성자가 그 단계의 것을 주시면 받게 된다.
23. 차원만 올라간다고 얻는 것이 아니다. 차원이 올라가도 성자가 줘야 받게 된다.
24. 영계나 육계나 그 차원에 올라가도 성자가 줘야 얻게 된다.
25. 처음에 좋아서 얻고 잔치를 벌인 것도 가다가 가치를 잃고 장사를 치른다.
26.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쳐 얻고 좋아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 자기도 기뻐 노래하며 춤을 췄다. 그러나 한 때가 지나면 가치를 잃고 서서히 장사를 지내 무덤을 만든다.
27. 생명도 끝까지 귀히 여겨라. 육신 잔치, 영의 잔치를 늘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치르는 슬픈 고통을 겪게 된다.
28. 성자가 주신 사명도 처음에는 좋아하며 잔치한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더 연구하지 않고,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점점 가치를 잃고 사명의 장사를 지낸다. 그러면 결국 사명을 뺏기고, 스스로 초상집이 된다.
29. 처음에는 귀한 것을 얻고 이웃을 불러다 잔치를 치르더니,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가치를 잃고 이웃을 불러다 장사를 치른다.
30. 어떤 사람이 어떤 돌을 좋아하여 주워 왔다. 그리고 이웃을 불러 구경하게 하며 잔치를 벌였다. 모두 같이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그것을 주신 자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신 자를 더욱 사랑했다. 고로 그 돌의 숨은 형상을 깨달아 더 기뻐하며 표적의 잔치를 하게 되었다. 세월이 갈수록 그 돌의 값이 더욱 올라 기뻐했다.
31. 돌을 받았을 때 처음 감격이 식으면 희망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가치도 없어져 결국 장사 지내게 된다. 실상 그 돌은 비바람을 맞으며 세월이 갈수록 더욱 깎이면서 속에서 옥이 나와 빛이 나고,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 빛을 발하는 돌이다. / 성자도 분체도 그러하다. 귀한 자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나게 된다.
32. 월명동의 나무들도 돌들도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이 난다.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거목으로 크니 대작품이 되어 빛이 난다. 돌은 비바람에 깎이어 더욱 자연스럽게 되니 빛이 나고, 시간이 갈수록 돌을 구하기가 어려워니 귀한 걸작품이 된다. 또한 보는 자들의 두뇌가 발달되고 성장하니 차원 높이 깨닫게 되어 귀하고 가치 있게 보게 된다. 임시로 호기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가치를 아시는 성자가 세월이 갈수록 그 가치를 더욱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33. 귀한 것을 깨닫는 것과 찾아내는 것이 보화다.
34. 깊은 말씀을 찾는 것이 보화다.
35. 남이 모르는 깊은 아이디어, 아이템이 보화다.
36. 돌, 나무, 샘들을 월명동에서 찾아내어 가꿔라. 관리해라. 구경꾼이 되고 관광객이 되면, 성자도 너를 그같이 대하신다.

37. 사람의 마음은 땅속의 지층과 같다. 겉마음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속마음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마치 겉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땅속 지층은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하다. 고로 아무리 동쪽을 파도 그 속에서는 물이 안 나온다. 고로 겉마음만 보고, 그 말만 듣고 속지 말아라.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38. 아는 것이 보물이다.

39.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아는 것이 보화다.

40. 알려면 미래의 것들을 알아야 되기에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아는 성자에게 물어보아라. 묻는 것이 보화다.

41. 지능이 낮은 자는 알팍한 데 묻혀 산다.

42.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이었건만, 모르니까 그 일을 위해 몸부림치고 진액을 빼고 살았다.

43. 작게 수고하고 끝날 것인데, 모르니까 온몸을 날린다.

44. 모르면, 고생하며 갖은 고통을 받을 길을 희망으로 간다.

45. 기도하고 성자에게 물어라. 영계에서 보면 육계의 일들과 앞날이 선악 간에 보인다.

46. 확인되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

47.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돈만 보화로 보이고, 돈으로 살 것은 보화로 안 보인다. 성자는 돈보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보물을 직접 주신다.

48. 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한 보화가 ‘돈을 쥐도 못 얻는 보화’다. 또 ‘생명 보화’다. 돈은 수고하면 얻지만, 귀한 것은 돈을 쥐도 못 얻는다.

49. 육적 지능이 낮으면 낮은 것은 가치를 아는데, 높은 것은 가치를 모르고 이해를 못 하고 거기까지 활용을 못 한다. 가령 작은 나무가 1억이라면 놀란다. 그런데 큰 나무가 10억이라면 별로 안 놀란다. 가치가 높으니 감각이 없어서 안 놀라는 것이다.

50. 어렸을 때는 먹는 것, 신발, 옷 등 이런 것만 귀한 것으로 알고 선호하고 찾는다. 수십 년 크니 땅, 나무, 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51. 어렸을 때는 수도권 도시만 귀하다고 생각한다. 시골 산골짜기는 귀한지 모른다. 성장하면서 두뇌의 차원이 높아지니 시골 산골짜기, 자기 고향, 자기가 사는 곳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52.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을 귀하게 만들어 수도권 도시 못지않게 쓰면, 그 땅을 수도권처럼 쓰게 된다. 혹은 도시보다 더 귀한 가치를 알고 쓰기도 한다.

5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말할 때는 사람에게 말하듯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잘하네요.” 하면, 안 된다. 대화 상대가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통으로 수백억 가지를 잘하신다.

54. 한 가지를 잘하면서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 한 가지만 유명하게 잘하고 다른 것은 수준이 땅

바닥이다.

55. 칼날 같은 자연석은 칼날 같은 위치에서만 봐야 찾기 때문에 찾기 어렵다. 칼날 같다는 말은 비유다. 칼날 같다는 말은 예리한 단계의 것을 말한다.

56. 월명동은 <예술의 자연 박물관>이다. 예리하게 칼날 쪽에서 보듯이 그 차원에서만 봐야 된다.

57. 칼날은 전체 중에서 칼날 같은 위치에서 봐야만 칼날 선이 얼마나 예리하고 가는지 보여 감탄한다. 각도를 100분의 1만 돌려서 보면 예리한 것은 못 본다. 존재물도, 사람도 제 위치에서만 대결작품으로 보인다.

58. 영계에서 육계에서 <진리의 걸작>을 찾을 때도 그러하다. 많은 잠언들 중에서 성자가 주신 칼날 같은 잠언이 있다. 이 잠언은 받는 자가 그 차원에 가야 받는다. 잠언 하나가 1억 천만금 값이다. 수억짜리 책과 비교도 하지 말아라.

인식은 결정이다. 방법을 달리하여라. 생각이 축복이다. 찾는 것이 보화다. 굳은 뇌를 풀어라. 차원을 높여야 보인다. 휴거는 사랑이다. 소통이 생명이다. 본체를 알아라. → 모두 성자가 주신 칼날 같은 잠언으로서 공만 한 다이아몬드 가치를 가진 생명의 말씀이다. 이 잠언들을 중심으로 수십 개, 수백 개 잠언들이 연결되어 있다.

59. 수석관에 가 보면 칼날 같은 대결작들이 있고, 차원대로 수십 종의 수석들이 연결되어 있다. 성자가 주신 잠언도 그리 보고, 깨닫고 실천하여라.

60. 월명동 자연의 걸작품 중에서도 칼날같이 예리하고 다이아몬드 덩이, 황금 덩이같이 귀한 대결작이 있다. 그것을 알고 보면 감동받고 감탄한다.

61. 월명동에 수십 번 갔어도 아직도 걸작을 못 본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의 대결작은 섭리인 어느 누구도 모르고 본체만 아는 것도 있다. 눈으로 봐도 자기 두뇌의 차원이 그 단계에 가야 하고, 그 단계에서 성자가 생각의 축복을 줘야 보고 알게 된다.

62. 월명동에는 가장 작은 것을 가장 크게 전시해 놓은 작품이 14개나 있다. 봐도 모른다. 영적 지능 차이, 두뇌 차이다.

63. 성자와 주와 같이 날아야지, 혼자 날다가 떨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초안)

64. 계시를 받을 때도 성자와 주와 같이 받아야 사탄에게 빠지지 않고 사망 주관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65. 일도 성자와 주와 같이 해야 안 떨어진다.

<2013년 11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제 방향에서 봐야 보인다.

2. <성자바위>에는 일곱 개의 형상이 있다. 성자 형상, 인독수리 형상,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치타 형상, 발바닥 형상, 팬텀기 형상이 있다. 그러나 각각 ‘제 방향에서 봐야’ 그 형상이 제대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제 위치와 제 방향에서 봐야만 ‘심정 일체, 말씀 일체’ 되고 감동되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탄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제 위치와 제 방향을 벗어나면 안 보이고, 감동도 안 되고, 감탄도 안 나오고, 사랑의 소리도 안 들린다.

4.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하고 확실하게 집중하여 설명을 잘해야 듣는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느끼고 깨닫게 된다.

5. 찾는 것이 보화다. 만일 <성자바위>에서 다른 형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평생 ‘하늘의 성자 형상, 땅의 인(人)독수리 형상’ 두 가지만 보고 끝났을 것이다.
6. 한 차원 더 높이는 것은 백지장 차이다. 그러나 백지장만큼 더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비교할 수 없다.
7. 세상에서도 백지장만큼 조금 더 아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백지장만큼 조금 더 알고 행한다면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8. 한 치 앞을 더 내다보는 자, 그 한 사람이 지구 세상 70억 명을 앞질러 간다.
9. 성자가 재림한 것도 차원 높여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영으로 땅의 합당한 자의 욕을 쓰고 온다.’ 하며, 그 방향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지 않았으면, 성자가 땅에 재림했는지 몰랐을 것이다. 이는 지구 세계 최고의 발견이다. 이를 발견한 자가 성자를 맞고, 먼저 땅의 주인이 된다.
10. 성자와 분체를 ‘제 방향’에서 보는 자가 진리를 말해 주는데, 악평자들과 불신자들은 ‘다른 방향’에서 보고 “아니다. 잘못됐다.” 한다. 고로 바로 보고, 바로 증거해 줘야 된다.
11. 성경말씀도 ‘방향과 설명’에 따라 선지자나, 중심인물이나, 메시아나, 성자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알게 된다.
12. 비논리로 다른 방향에서 보면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게 되고, “성령님은 없다.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 것이다.” 하게 되고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하게 된다.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이는데, 다른 방향에서 보니 그런 것이다.
13.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실패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명을 한다.”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역시 제 방향에서 안 보고 다른 방향에서 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14. 섭리사를 볼 때도 다른 방향에서 보니, 악평하는 것이다. 섭리사에서 살아도 자기가 다른 방향에서 보니, 헛갈린다고 하는 것이다. 제 위치,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15. 수십억, 수백억짜리 수석도 제 방향에서 안 보니, 가치 없이 여기고 “그냥 돌덩이네.” 하고 버린다. 제 방향에서 본 사람이 주워 가서 팔아 큰돈을 벌게 된다.
16. <분체>도 제대로 봐야 ‘자기를 구할 자’로 보인다.
17. <자기 자신>도 온전한 방향에서 봐야 ‘자신의 모순’도 깨닫고 ‘자신의 가치’도 깨닫고 제대로 산다.
18. <성자바위>도 제 방향과 제 위치에서 봐야 그 형상이 정확히 보여 놀라고, 은혜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먼 길 온 보람을 느낀다. 이와 같이 <시대 말씀>도 정확한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서 들어야 ‘땅에 보낸 사명자’도 잘 보이고 제대로 깨닫는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다.
19. <성자 재림>도, <휴거>도, <성자>도, <분체>도 그 센터의 방향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 위치에서 제대로 보고 듣게 해 줘야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된다.
20. 불신자, 배신자, 악평자들은 ‘시대 말씀의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서 벗어나서 보니 “그것이 아니다. 사명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다. 제 방향과 위치와 각도에서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외치고 전해 줘야 된다.
21. <시대 말씀>에다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하면 그 말씀의 형상이 흐려지고, 말씀에 나타난 성자와 분체의 사명의 형상이 흐려진다.

22. 악한 자들은 계획적으로 나쁜 말을 만들어서 선전한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그냥 두지 않고, 정녕코 정한 날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23. 악한 자들이 자꾸 계획적으로 나쁜 말을 만들어서 전하니, 자꾸 제 방향과 제 위치에서 시대 복음을 외쳐야 된다.
24. 시대 말씀을 제 방향에서 정확히 가르치고, 확실히 설명해 줘라.
25. 시대 말씀을 제 방향에서 제대로 배웠다면, 자기를 구원할 자를 반드시 깨닫게 된다.
26. 시대 말씀은 진리다. 그런데 왜 듣고도 못 깨달을까? 이는 강사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며, 듣는 자가 차원이 낮기 때문이다.
27. 시대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나? 성자와 그 분체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28. 앞으로 <성자, 성령, 분체>에 대해 설명을 잘하는 자들을 ‘섭리사 전문 강사’로, ‘교육 강사’로, ‘집회 강사’로 쓸 것이다.

<2013년 11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생각이 높으면 하나로 보인다.” 하셨다. (초안)/ 생각이 낮으면 여러 가지가 보이며 ‘뭘 할까?’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생각이 조금 더 높아지면 두 가지 길이 보인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한다. 그러다 생각이 더 높아지면, 그중의 하나만 훨씬 낮게 보인다. 고로 생각이 높으면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다.
2. 시력이 낮으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시력이 높아지면 하나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생각이 낮으면 두 가지로 보이고, 생각이 높으면 하나로 보인다.
3. 사람이 생각이 낮으면, 각종 종교와 우상 종교까지 다 비슷하게 마음에 들어와 다 좋다고 한다. 고로 ‘선’과 ‘악’ 두 세계가 다 보이면서 ‘천국길’과 ‘지옥길’ 중의 어떤 길로 가야 좋은지 모른다.
4. 생각이 높으면, ‘천국길’만 보이고 ‘선’만 보인다. 고로 즉시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와 생각이 일체 돼야 생각이 높아져서 하나로 보여 즉시 그 일을 하게 된다.
6. 자기 생각의 차원이 높을 때는 ‘시대 사명자’를 제대로 보고 좋아하며 따른다. 그러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생각의 차원이 낮아지고 신령함이 없어져 ‘시대 사명자’가 두 가지로 보여 헛갈려 한다. 그러다 섭리길을 저버리고 세상길로 가 버린다.
7. 처음에 <성자바위> 사진을 갖다 놓고 봤을 때는 형상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였다. 두 개로 보였다. 그러다 생각이 높아지니, 각 면마다 남자 형상도, 여자 형상도, 인(人)독수리 형상도, 성자 형상도, 팬텀기 형상도, 치타 얼굴 형상도 하나로 보였다.
8. 누구든지 영계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보이고, 자기가 듣는 대로 인식한다. 고로 ‘여러 가지’가 보이고 들린다.
9. <영계의 문>에 들어갈 때는 마음과 정신이 일체 되고 생각이 하나가 돼야 한다.
10. 영계나 혼계에 들어가서 보면, 그 전에 보고 듣고 생각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로 정확하게 보인다.

11. 육계에서도 강사가 말씀을 전할 때 ‘제 방향’에서만 제대로 설명하면, 듣는 자가 성자도, 분체도, 성령도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런데 ‘예술’로 뱅뱅 돌리고 ‘다른 이야기’로 뱅뱅 돌리니 1년, 2년이 가도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12. 섞지 말고 쪼개라. 그래야 불이 붙는다.
13. <성자바위>도 쪼개서 그 방향에서 봐야 형상이 보인다. 안 쪼개고 위에서 보면, 네모진 형상에 ‘돌나물’만 보인다.
14. 말씀도 강의도 쪼개서 전해야 불이 붙는다. 섞지 말고 쪼개서 그 방향의 것만 확실히 말해 줘라. 쪼개지 않고 전하면 사탄이 개입해서 ‘시대 사명자’를 못 깨닫게 한다.
15. 설교할 때도 말씀의 근본을 정확히 알고 외쳐야 된다. 정확한 방향에서 제대로 발음하고, 제대로 끊어서 읽으며 외쳐야 된다.
16. 누구나 생각의 차원을 높인 만큼 ① 숨은 보화를 발견하고, ② 숨어 있는 차원 높은 진리도 깨닫고, ③ 성자와 분체를 차원 높게 가르쳐 제대로 알게 하여 사망에서 나오게 하고, ④ 시대를 따라 휴거도 이루게 된다.
17. ‘자기 죄와 모순’도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인다. 그래야 자기 죄와 모순을 정확히 알고 회개하게 된다.
18. 분체가 죄와 모순을 지적했을 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면 서운하다. 고로 자기가 제 방향에서 ‘자기 죄와 모순’을 정확히 보고 깨달아 자기가 고쳐라.
19. ‘자기 의와 가치’도 제 방향에서 봐야 제대로 보고, 더욱 의롭고 가치 있게 살게 된다.
20. ‘병’도 제 방향에서 봐야 정확하게 발견하고 고친다. 자기 몸을 건강한 방향으로만 보다가는 곧 죽음의 병이 닥쳐 오는데도 모른다.
21. ‘신앙의 병’도 그러하고, ‘자기의 각종 문제’도 그러하고, ‘섭리의 문제’도 그러하다. 제 방향에서 봐야 미리 알고 해결한다.
22. ‘성자와의 사랑 센터’도 제 방향에서 제대로 봐야 된다.
23. ‘휴거 센터’도 제 방향에서 제대로 보고 행해야 된다.
24. 자기 주관, 자기 인식, 자기 방향은 죽는 길이다.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그래야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변화 충만, 교통 충만, 사랑 충만’ 하게 된다.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의 축복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축복해 줄 것이 있으면, 먼저 생각나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주신다.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이 ‘축복’이다.
3. 하나님도 성자도 각 사람에게 축복해 줄 것이 있으면, 뇌에 알려 주어 생각나게 해 주고, 그것을 행하게 하여 축복을 받게 하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국과 낙원 등 영계에 대해 모두 아신다. 고로 그에 대해 생각나게 해 주어, 인간이 믿고 행하게 하여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

5.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축복 중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합당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때에 맞춰 행하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이 그것을 행할 때 능력으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시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본인을 담대하게 하여 도우시고, 감동시켜 그것을 행하게 도우신다.
7. 신은 인간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알려 주면서 축복을 주신다.
8. 월명동의 돌, 나무, 샘 등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생각나게 하고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여 만들었다. 고로 축복을 받았다.
9. 하나님이 구상을 안 주셨을 때는 생각이 안 나서, 월명동 돌 조경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여 계단식으로 만들려고 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생각나게 구상을 주시니, 그것을 행하여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상세계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게 되었다.
10. 자기중심을 버려야 하나님도 성자도 ‘뇌’에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구상을 생각의 축복으로 주시어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구상대로 만들게 된다.
11. 생각을 집중하여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향해 있어야 합당하게 생각의 축복을 주신다.
12.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모르면, ‘뇌’에 ‘하나님의 생각’이 축복으로 와도 “내 생각인가?” 하고 행하지 않는다.
13. 어느 때는 순간 번개처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의 생각이 떠오른다. 이때 즉시 행해라.
14. 어느 때는 ‘꿈’으로 보이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시면서 생각의 축복을 주신다.
15.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생각의 축복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고, 그것을 경험 삼아 현재에도 미래에도 깨닫고 행하여라.
16. 만물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보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지 보아라. 성자와 성령님의 말씀과 감동이 ‘뇌’에 전해지며 온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생각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
18. 삼위가 축복해 줘도 ‘받는 자의 책임’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 곧 ‘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이다.
19. 두뇌의 차원이 낮으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차원도 낮아서 생각의 축복을 못 받는다.
20. 높은 차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두뇌 차원’을 높여야 된다.
21. 하늘을 향해 ‘신앙의 뇌의 차원’을 높이려면... 기도, 말씀, 영광, 감사, 회개, 화평, 전도, 강의, 관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모심과 사랑을 잘해야 된다.
22. 뇌로 저장하고, 손으로 기록하기다. 생각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뇌에서 사라지니 귀하게 챙겨 기록해야 된다.
23. 말씀이 복이다. 말씀이 자료다. 말씀이 없어지면, 빈 그릇만 남게 된다.
24. 생각이 살아 있어야 삼위가 어떻게 하라고 생각의 축복을 주셔도 받고 행할 수 있다. 생각이 하늘로 향해 있지 않

고 잠을 자고 있으면, 삼위가 생각의 축복을 주셔도 못 받는다.

25. 육적인 자는 뇌에 축복의 말을 줘도 입력이 안 된다.

26. 먹고, 입고, 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프로가 되어 행하니, 그것을 안 하면 못 견딘다. 기도, 말씀, 실천, 강의, 전도, 관리, 삼위 사랑, 화평 등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매일 행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프로가 돼야 한다.

27. 체질이 되면, 안 하면 못 견디니 자동적으로 행하게 된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각 사람의 평소 행위를 보시고, 그 '뇌'에 생각의 축복을 주신다. 고로 평소에 늘 성자를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공적이 있어야 된다.

<2013년 11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29. 임시로만 행하지 말고, 한 기간을 두고 행하기다.

30. 한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행해라.

31. 임시로 하지 말고, '아예' 완벽하게 만들어 버려라.

32. 월명동 식당도 처음에 임시로 천막을 쳐 놓고 썼다. 그다음에는 가건물을 지어 놓고 썼다. 그러다 계획적으로 건축하니, 100% 완벽하게 되었다. 신앙도 한 기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해야지, 임시로 하면 '휴거'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된다.

33. 자연성전의 돌 조경을 만들 때도 완벽하지 않은 석회석, 청석, 대리석 피쪽으로 쌓은 것은 그 본질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다섯 번 무너졌다. 좋은 돌로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이 최고로 쌓은 여섯 번째 것만 남아 있다. 상(上) 차원으로 했을 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구상 작품이 되었다.

34. 휴거되는 데 있어서도 임시로 일부만 해서는 안 된다. '아예'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로 행해라. 아예 '진짜 신부, 진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버려라. 전능자에 속한 일들을 임시로 잠깐만 일부만 하면 되겠느냐.

35. 성자가 지금! 생각의 축복을 주신다. <휴거>는 관념이 아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풍속도 아니고, 하나의 이야기도 아니다. 지금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구원자와 100% 일체 되는 자는 휴거된다. 이들의 영 중에는 이미 천국에 오고 가는 영도 있다. 성자는 <휴거> 때문에 다시 오셨다. 성자는 삼위일체 중의 한 존재이시다. 성자가 안 오셨으면, 누구도 이같이 엄청난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성자가 다시 오신 이후, 성자는 그 분체를 통해 지금까지 3만 번 이상 말씀해 주시고, 섭리의 계시자 70여 명을 통해 3천 번 이상 계시를 주시며 <휴거>에 대해 깨닫고 행하게 하셨다.

36. 성자는 신이라 인간이 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성자는 그 분체의 몸을 쓰고 시대 말씀을 해 주고 깨닫고 행하게 하신다. 분체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분체와 일체 되어 그를 통해 성자를 맞고 성자와 사랑 일체 된 자는 그 육의 행위로 그 영이 변화된다. 고로 그 영이 신부로 변화되어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천국 신부성>으로 휴거된다.

37. 혼으로 너의 휴거 상태를 보아라.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38.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최고로 크고 영원한 축복은 곧 <휴거의 축복>이다. '휴거의 축복을 받은 값'은 세상에서는 비유할 것이 없다. 다만 비유한다면, 한 개인이 지구를 받은 그 값보다 더 크다. 지구를 받더라도 인생은 100년 살고 끝나니 100년밖에 못 쓰고, 또 자기 한 개인밖에 못 쓴다. 영이 휴거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세계의 것과, 삼위의 사랑을 수천억 년, 수조 년, 영원히 받고 산다.

39. <휴거>는 ‘100% 성자 사랑’으로 된다. 한 여자가 ‘사랑’ 때문에 한 남자와 같이 살게 되듯이, 성자와 같이 살려면 절대 사랑해야 된다.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산다. 고로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40.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와 일체 돼야 참감나무가 되어 참감이 열린다. 성자와 100% 사랑 일체 안 되면 휴거는 못 한다.

41. 성자와 일체 되면, 성자와 분체의 몸이 되어 살게 된다.

42. 휴거되지 못하면, 그 영은 영원히 희망 없는 영으로 끝난다.

43. 휴거의 가치를 알면, 누구라도 휴거에 해당되는 말씀대로 행하여 휴거될 것이다.

44. 성자의 육은 세상의 것을 보고 듣고서 전능자 삼위일체 앞에 고하여 공의롭게 처리한다.

45. 생각의 축복을 줬을 때, 즉시 행하여라!

46. 부지런함, 열심, 뇌 사랑에 불타라!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변화되는 자를 찾으신다.

2. 성자와 생각이 같고, 스케일이 큰 자를 찾으신다.

3. <역사>는 성자와 주와 같이 펴야 역사다.

4. 혼자 펴는 역사는 개인 역사, 개인 일대기다.

5.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편 ‘새 역사의 장소’다.

6.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 아래 나뭇가지가 크고, 나무 동치가 커 가듯, 작고 크게 계속 펴 나가는 것이다.

7. 각 면으로 다 부활하여라!

8. 사탄은 성자의 육을 의심하고 꺼려하며 멀리하는 자를 제일 노린다.

9. 이리와 사자들은 주인과 멀리 있는 양을 노리며, 날이 어둡기만을 기다린다.

10. 빛이 있을 때 어서 뛰어가라! 성자가 빛이다. 그 육은 보이는 빛이다.

11. (성자) 나 성자가 재림하여 땅에서 사랑의 신부 단장을 한 자를 딱 한 사람 찾았다. 그가 너희 선생이다.

12. 자기 육성을 죽이는 것이 ‘희생의 제물’이다.

13.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이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밭거름이 되듯, 육이 밭거름이 되어 영을 만들고 살린다.

14. 구약 때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피’를 드림은 ‘생명’을 드림을 뜻한다.

15. 구약이 가고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만민을 위해 '생명의 피'를 드린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이 필요 없게 됐다. 그때부터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다.
16. '온전한 행실'을 하는 자에게 '온전한 말씀'이 주어진다.
17.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행실'로 자기를 살린다.
18. 육신은 육신으로서 조건이 없으면, 성자가 역사하셔도 구원받지 못한다. '육신으로서 조건'이란, <육>이 온전한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해야 된다는 말이다.
19. <육의 행실>로 '영'도 '육'도 열매를 맺는다.
20. 아무리 뜻이 있어도 자기가 행하며 몸부림쳐야 얻는다.
21. 성자의 육으로 온전히 쓰여지는 자가 육으로 보이는 구원주다.
22. 성자의 '육'의 조건으로 살아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게 되어 성자를 만나 구원받으니, 성자의 육은 구원주가 된다.
23. 시대에 따라 모세도, 선지자들도, 중심인물들도 그 시대에 육으로 보이는 구원주였다.
24.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통해 사람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셨다.
25. 하늘까지 달도록 차원을 높여라!
26. 공적인 일을 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공적인 계시를 주신다.
27. 사람에게 이야기해 봤자 해결이 안 되니, 신을 찾는 자들이 있다.
28. 개신기독교의 외가는 천주교다. 유럽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다.
29. 독일은 말씀을 잘 풀어 줘야 되는 '기독교 민족'이다.
30. 이미 육과 영을 구원하는 말씀과 휴거되게 하는 말씀을 다 주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외쳐야 할 것을 찾아서 외쳐야 된다. 시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다리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에게 풀어 줘야 된다. 어서 이 시대 복음을 전하여라.
31.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가르쳤다. 영으로 배우는 것이 육으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32. (성자) 영으로 배우려면, 기도해라. 나 성자를 부르며 가르쳐 달라고 해라. 깨우쳐 달라고 해라.
33. (성자) 나의 말은 다 영적인 말이다.
34. (성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각오다!
35. 낙심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36. 성자의 육을 증거해야 성자도 성령도 역사하신다.

37. 성자는 ‘실천자’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신다.

38. 지옥이나, 천국이나. 선택은 인간의 몫이다.

39. 천국의 하나님 보좌 뒤에 있는 무지개는 세상 하늘에 뜨는 무지개가 아니고, 실제로 되어 있는 무지개다.

40. 대만은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자유로이 사는 민족성을 가진 나라다.

41. 각 나라마다 민족성이 있다. ‘민족성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42. 각 개인마다 개인 성향과 성격이 있다. ‘성격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 성자와 주와 일체다!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43. ‘육’은 자유로우나 ‘영의 구속’은 아무나 풀 수 없다. 주와 일체 되어야 영의 구속이 풀린다.

44. ‘성자의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난다. 지구가 생긴 이래 딱 한 번뿐인 이 <휴거의 때>에 ‘성자와 주의 애타는 심정’이 <생기>다.

45. ‘시대 말씀과 교육’이 ‘생기’다.

46.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새 역사의 장소로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곳이다. 너도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월명동같이 성자의 신부로 만들라 함이다.

47. ‘선생의 정신’이 <생기>다. 이것을 불어 넣어야 살아난다.

48. (성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역사를 펴 때마다 그 시대 최고 기준자를 뽑아 그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펴면서 사람들을 인도해 왔다. 이 시대에 지상의 최고 기준자는 너희 선생이다.

49. 하나님이 그 시대에 뽑은 자가 그 시대에 오리라 한 ‘그’다. 모세 때는 모세가 오리라 한 ‘그’였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끝까지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가나안 복지에 가지 못했다. 노아 때는 노아가 오리라 한 ‘그’였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믿지 않아 겨우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받았다.

50. 이 시대는 ‘재림주’를 기다리는 시대다.

51. ‘소망’이 생기다. ‘생명의 말씀’이 생기다. ‘성령의 불’이 생기다.

52. ‘시대 사명자’가 생기다. 그를 받아들여야 죽은 마음과 혼과 영이 살아난다.

53. 이 시대는 성자가 보낸 자를 받아들여야 살아난다. 그가 생기이며, 생명이다.

54. 성자가 명한 것을 실천해야 다음 것을 가르쳐 주신다.

55. 1차원에서 실천해야 2차원으로 가고, 2차원으로 가야 2차원의 것을 배우게 된다.

56. 신앙을 할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부류가 있고, 말씀을 듣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못 견뎌 실천하는 부류가 있다.

57. 나태한 자, 게으른 자, 안일한 자, 편하게만 생활하는 자는 모두 개조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서 살다가 끝난다.
58. 회개하는 데 인색한 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자는 자기를 망치는 자다.
59. 모순을 지적하며 책망해도 오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고치고 따라오는 자는 생명력이 있어 성자와 주와 동행할 자다.
60.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심정 맞춰 행하는 자가 되어라.
61. 독수리와 치타같이 빠른 구름이 되어 번뜩번뜩 행하며 주를 따르는 자와, 겸손한 자를 성자는 매일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신다.
62. 믿음이 굳건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이어야 담대히 실천하게 된다!
63. 여호수아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육적 전쟁'에도 승리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그 말씀을 확신했기에 담대했다. 고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순종과 확신과 담대한 실천'으로 승리한 것이다.
64. 성자와 주가 함께한다고 했으면 그 말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마다 성자께 구하고 의논하여라.
65. 신앙은 계단을 오르듯이 연속해서 조금씩 올라야 된다.
66. 회개하고도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는 걸어 올라온 계단을 다시 뒤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생활의 실체다.
67. 먼저 주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 먼저 하는 순종이다.
68. '먼저 사랑'이어야 된다. '먼저 하는 사랑'은 절대 죽지 않는 사랑이다. '끌어당기는 사랑'은 그냥 놔두면 죽는 사랑이다.
69. 성자는 답을 주건만, 네가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성자가 보실 때 얼마나 얄밟겠느냐. 그러니 더 답을 주겠느냐.
70. 만왕의 왕이 하찮은 자에게 심부름꾼 같이 해 주는데도 그 심정을 모르는구나. 그런 자가 만일 천국의 변두리라도 간다면, 간 후에 성자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니 처참하다.
71. 네 행위로 실력대로 주 안에서 행하고 받아라!
72. 연륜이 상관없다. 성자와 주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다.
73. 자기가 놀랄 정도로 행해야 가정 단위, 민족 단위로도 역사가 일어난다.
74. 굳은 뇌가 풀리고 마음과 혼이 변화하는 대로 육이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이 변화된다.
75. 모래땅에 물을 부으면 남는 것이 없어도 나무는 그 물을 다 빨아먹는다. 이와 같이 자기가 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육이 행한 것'은 '영이 다 흡수'했다.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76. 성자는 세상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고로 성자는 그 육을 통해 섭리사에 온전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77. 온전하게 할 때 성경의 예언이 풀어지고, 재림도 풀어지고, 휴거도 풀어진다. 땅에 온전한 자가 있으니, 성자는 그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그를 통해 온전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고로 시대 하늘의 모든 비밀이 풀렸다.
78. 성자를 자기 마음에 온전히 품어야 성자가 그를 통해 실력 발휘를 하신다.
79. 생각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다. 생각과 행동을 일체시켜야 된다.
80. 사랑은 '뇌'에서부터 출발한다. 뇌에서 출발하면 마음으로 받고, 그다음에 혼으로 가고, 그다음에 영으로 간다.
81. (성자) 나 성자의 생각과 맞춰라. 그래야 통한다.
82. 처음에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여러 번 하면서 완전케 이르게 하여라.
83. 인간의 모든 핵은 '영'이다. '영'이 본질이다.
84. 하늘의 법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은 '사랑 법'이다.
85. 모든 것을 할 때는 '성자를 사랑'함으로 해라. 이것이 사랑 법을 지키는 것이다.
86. 하늘 앞에 '돈'만 드리지 말고 '감사'를 함께 드려라. 돈만 드리면 하나님께 안 간다. 뜨거운 마음, 고마운 마음, 감격하는 마음이라야 하늘 앞에 상달된다.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쓰여지는 것이다.
87.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육이 행한 것이 그대로 보인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사탄과 그들이 쓰는 악인들과 하나님 편과의 싸움이다.
88. <진리>는 '빛'이다. 시대 진리를 확실히 믿어라! 그래야 밝은 빛이 된다.
89.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이 포탄과 같이 되어 사탄에게 쏘면, 사탄이 그 빛을 맞고 쓰러지고 도망간다.
90. 성자와 그 육을 흔들림 없이 100% 절대 믿고 사랑해야 그 '믿음과 사랑'이 신앙의 무기가 된다.
91. 시대 진리를 절대 믿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성자를 절대 사랑함으로 그 무기를 가지고 사탄과 악한 자들과 담대히 싸워라!
92. <진리>가 '빛'이니, 진리를 전해라! 그래야 '참'을 알고, 어둠에서 빛을 보고 나온다.
93. '진리의 빛'을 비취 생명길로 나오라 해도 시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심하고 안 나오면, 어둠 속에 묻힌다.
94. 처음에는 개성대로 넓게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오직 성자의 뜻을 두고 끌고 간다. 성자의 재림을 맞아 온전히 휴거돼야 하기 때문이다.
95. 사탄이 뒤에서 소리쳐도 성자와 선생을 따라오면 괜찮다. 사탄은 소리만 지르지, 급수가 낮아서 밑의 길로 간다.
96. 오직 '진리'를 무기 삼고 싸우고, '사랑'을 무기 삼고 싸워라.
97. 육적인 자는 '무력'으로 싸우고, '육성'으로 싸우고, '모진 말'로 싸우고, '몸'으로 싸운다. 영적인 자는 '사랑과 진리'로 싸운다.
98.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성자에게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시기 질투하며 막는다. 은밀히 관리해

야 된다.

99. 성자를 사랑해도 자기 성격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 성자가 좋은 대로 사랑이다.

100. 마음에 얹힌 것들을 풀고 사랑이다. 마음을 풀지 않고 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못 된다.

101. 성자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늘 성자의 사랑의 답을 받게 된다.

102. 많은 자들이 모여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이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더 빛이 난다.

103. 주가 자기 죄 짐을 대신 지고 가는데, 주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가 되어 사탄이 잡아 가려 한다.

104. 주가 네 죄를 대신 지고 가니,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진다. 예수님 때도 주를 위해 울면서 죄를 회개한 자들과 그냥 쳐다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자들이 갈렸다.

105. 제자들이 생명의 항아리를 깨뜨렸다. 주가 그 죄 짐을 대신 지고 가니, 주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106. 주가 시대 말씀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네 신앙이 죽는다. 이는 나무를 심어 놓고 물을 안 주고 관리를 안 하면 나무가 죽는 격이다.

107. 목자가 밤낮으로 이리와 사자들로부터 양을 지키듯, 주는 밤낮으로 사탄으로부터 너를 지킨다. 고로 네가 살아 존재한다.

108. 왜 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지 깨닫고 기도해라.

109. 그 '사명'을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다. '성자의 욕'이니 기도해 주는 것이다.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기도를 안 하려느냐. 그러니 너를 구해 주겠느냐. <강조> 왜 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지 깨닫고 기도해라.

<2013년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욕은 세상으로 흘러간다.

2. 인생은 역류의 삶이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바다까지 떠내려가니, 세상으로 흘러가는 삶을 역류되게 하여라.

3. 욕은 영을 하늘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 키워 주는 역할에서 끝난다.

4. 욕이 영을 위해 살지 않으면 욕도 헛된 삶이 되고, 영도 헛된 삶이 된다.

5. 욕은 '차'라면, 영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외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야 된다. 그때까지만 차가 필요하다. 공항으로 가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욕은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까지만 필요하다. 욕이 영을 위해 살면,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성삼위와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6. 욕은 '배'라면, 영은 '사람'이다. 바다를 지날 때까지만 배가 필요하듯이,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데까지만 욕이 필요하다.

7. 욕은 '물'과 같다. 물은 가만히 두면 흘러가듯, 욕은 가만히 있으면 욕으로만 살아간다. 연못, 저수지, 댐을 만들어 물을 막아 놓고 쓰듯이, 마음과 혼이 함께 욕을 잡아 욕적으로 가는 것을 막고 다스리며 써야 된다.

8. 모터로 흐르는 물을 뿜어서 물을 높이 올리듯이, '마음'이라는 모터로 항상 욕을 관리하기다.
9. 주를 따라가면 쉽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뜻을 펴 나가기 때문이다.
10. 과정은 목적지가 아니다. 욕은 '과정'이다. 영은 '목적'이다.
11. 표상을 따라 행하라고 '중심자 표상'을 보냈다. 그를 따라가는 것이 표상을 세운 목적이다.
12.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욕신을 가지고, 오직 영을 위해 목적을 두고 몰두해서 살아라. 그렇지 않고 욕을 위해서만 사는 자는 매일 시들고 마는 꽃같이 되고 만다.
13. 성자의 재림은 이미 총을 쏘서 총구에서 떠난 탄알같이 됐다. 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이 멈추는 날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14. 성자의 재림은 일순간이다.
15. 세상 문화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사탄이 막은 담'이 되어 주와 네 사이를 막고 있다. 자기가 자기 생각과 욕성을 모두 불살라 사탄이 막은 담을 무너뜨려야 주와 막힌 문제가 해결된다.
16. 자기를 만들고 나서 주를 만나기다.
17. 자기를 안 만들고 주를 만나면, 인사만 하고 어서 만들라는 교훈만 받게 된다.
18. 자기 만들고 주를 만나면, 그날부터 즉시 하늘이 계획한 것을 행하면서 뜻을 이루게 된다.
19. <구원자의 사랑>은 '구원길로 데려가는 것'이다. '성자를 맞게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자의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자는 구원자가 옆에 지나가도 모른다. 영혼이 천국에 가도록 구원해 주는 것같이 큰 사랑은 없다.
20. 자기를 중심한 사랑을 원하고 기대기만 하니, 주의 짐이 된다.
21. 주는 세상을 구원하러 와서 구원하는 데 해당되는 사랑을 했다.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구원하려고 사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남녀의 사랑은 욕 사랑으로서 욕과 같이 사라지는 사랑이다.
22. 영을 구해 주고 욕을 사망에서 구해 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다.
23. '성자와 구원자의 사랑'은 돈같이 여러 가지로 사용된다.
24. '이성의 사랑'은 단지 변성과 성적으로만 쓰여질 뿐이다.
25. '하나님의 사랑'은 수만 가지로 쓰여진다. 창조하는 데 쓰여지고, 구원하는 데 쓰여지고,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 쓰여진다.
26. 인간은 시간이 지나 오래되면, 자기 삶에 처해 몸도 마음도 면역이 되어 자기가 말하고 행했던 것을 잊어버린다.
27. 본인은 잊으나, 당한 자는 안 잊는다.

28. 무기력해지고, 관심이 없어지고, 집중력이 없어지면 마치 전쟁터의 적군 지역에서 잠자는 자와 같아서 적이 목을 베 가도 모르다.

29. (성자)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일체 되는 자는 나와 같이 행한다.

30. 밤에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인간 야수들로부터 지키듯, 너와 평생 함께 살 사랑하는 자를 완벽하게 지켜라.

31. 애인 잃고 평생 혼자 살든지, 지킬 때 온전히 지켜서 평생 함께 살든지 하여라.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32. 쓰레기를 모아서 돈을 버는 자는 쓰레기를 자랑하고 산다. 이와 같이 욕을 위해 사는 자는 욕을 자랑하고 산다.

33. 영을 위해 사는 자는 영 자랑, 하늘 자랑을 하고 산다.

34. 전능자와 보낸 자를 가소롭게 보다가는 그 영이 피하지 못하는 곳으로 미끄러져 끝도 없는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게 된다.

35. 암세포 하나를 가소롭게 보다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면 점점 퍼지고 전이되어 결국 생명을 뺏기게 된다.

36. 오해도, 나쁜 생각도, 무지도, 의심도 잘라 버리고 생명길을 가라.

37. 롯 때 롯의 아내는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고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다. 노아 때 노아의 아들 함은 믿음의 조건을 못 세움으로 저주를 받았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믿음의 조건을 못 세움으로 광야에서 죽었다. 이 시대 기성인들은 악평자들로 인해 믿음의 조건을 못 세움으로 기성 광야에서 살게 되었고 사망의 계곡에 가서 살고 있다.

38. 이 시대 보낸 자 앞에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과 성자 앞에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자도 안 보이니, 하나님과 성자의 말을 전하는 보낸 자를 통해 조건을 세워 이 시대 구원을 받는 것이다.

39. 네 영혼을 위해서 너를 구하러 온 자를 간절히, 진실로, 참으로 대해라.

40. 너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하여라. 하나님은 피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보시고 그의 호소를 듣고 행하신다.

41. 구원하러 온 자는 몸부림치며 진정 행하는데, 구원받을 자는 마음 놓고 제 갈 길을 가며 제 할 일에만 빠져 산다.

42. 몸에 불이 붙어 몸이 타면, 그때는 모두 뛸 것이다.

43. '무지'는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를 고생시킨다.

44. <천국>은 '아는 자의 것'이요, <하나님>은 '행하는 자의 것'이다.

45. 구원자는 할 말을 다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쳐다본다. 그들이 사망으로 가는 차를 타도 이미 할 말을 다 했으니 할 말이 없어 구경만 한다.

46. 사망으로 가는 차의 목적지가 어디이겠느냐. 사망이다. 목적지에 내린 후에야 구원자의 말이 뇌에 못이 막히듯 생각날 것이다.

47. 지옥의 고통은 지구를 머리에 얹은 것 같고, 뇌를 호미로 파는 듯하다. 구원자가 거기 가서 당하고 와서 말해 준 것이다.

48. ‘죄’는 자기를 함정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한다. 고로 죄는 날날이 회개함으로 불사르고 씻어라. 더러움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함으로 사탄과 상관없게 하여라.

49. 모르는 자는 자기 생각의 이유를 단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은 사망이다.

50. 행한 일은 역사가 증거한다.

51. 성자를 사랑해야 ‘사랑의 인봉’을 풀게 된다.

52. 자기 죄, 원죄, 유전 죄, 연대 죄를 다 회개해야 죄에서 나온다.

53. 조건 없이 구원받으려 하는 자와 조건 없이 하늘 사명을 받으려 하는 자는 허공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자다.

54. 구원자는 하나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조건을 세웠다. 그러므로 성자께 생명의 말씀의 밋줄을 받고, 각종 구원의 장비를 받아서 인생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다.

55.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을 배워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물속의 잠수함’같이 사용해라.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을 가지고 험한 파도와 급물살에서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잠수함’같이 쓰면, 생명을 구원한다.

56. 구원자와 일체 된 마음과 행동만이 구원을 이룬다.

57. 목적지만 보지 말고 구원자를 보아라.

58. ‘육 구원’은 곧 ‘영 구원’이다.

59. 육의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영의 차원도 높아진다.

60. 정말 천국에 가려면, 네 마음에 성자와 구원자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61. 기도굴이 나를 품어 부활시켜 나오게 했다.

62. 성자는 기도굴과 대둔산 용문굴에 나를 숨겨 놓고 가르치고 기르셨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니, 성자가 마음대로 나를 가르칠 수 있었다.

<2013년 11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63. 성자가 원하시는 차원까지 높여야 육도 영도 휴거된다.

64. 어떤 자는 ‘육’도 휴거되지 않았는데 휴거됐다 하고, ‘영’도 휴거 준비를 다 못 해 놓고서 휴거된 줄 안다. 점검해라. 써 놓은 글을 교정하듯 하여라.

65. 저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휴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분담이다.

66.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사는 삶이 휴거된 삶이다.

67. 더 좋은 부활이 더 차원 높은 삶이다.

68. 산 정상까지 오르듯 계속 올라라. 목적지는 ‘정상’이다. 성자와 본체는 정상에서 기다린다.
69. 성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기대하고 의지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사람이라서 변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너도 넘어진다. 네가 실력껏 성자에게 기대라. 보이는 구원자에게 기대라.
70. 오직 구원자에게만 기대라. 구원받은 자라도 그들은 성자와 구원자의 대상이다. 대상은 약하다.
71. 구원자는 중심자다. 중심자는 중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꼭 묶여 있다.
72. 중심자는 평생 중심의 위치에 있기에 좌우로 흔들림이 없다. 고로 그만 의지해라.
73. 하나님과 성자는 중심자를 시대 구원자로 쓰신다. 고로 그만 의지해라.
74. 중심자 외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고, 열매 없이 꽃만 피우고 끝나는 나무를 희망으로 기르는 자와 같다. 중심자는 너를 구하는 자다. 나머지는 구원받으려 하는 자다. 고로 그만 의지하라는 것이다.
75. 중심자와 일체 시켜 주지 않는 자는 절대 믿지 말아라. 사탄이 채 간다.
76. 중심자, 곧 구원자가 ‘생명을 살리는 생기’다. 곧 생명을 관리할 때는 구원자와 함께 관리하기다.
77. 한 생명을 흑암에서 끌어낼 때만 구원자를 찾아 끌어내고, 생명 주관권으로 와서는 구원자를 멀리하고 옆에 보이는 사람들과 심부름꾼과만 어울려 사는 자는 열매 없이 꽃만 피우고 끝나는 나무와 같은 자다.
78. 어린 자나 큰 자나 자기가 존재하는 만큼 책임분담을 해야 얻는다.
79. 단순한 기도는 단순하게만 이루어지고 만다.
80. 구원자를 위한 기도는 자기가 구원받는 데 유익한 기도다. 구원자의 힘으로 자기를 사망에서 끌어내기 때문이다.
81. 성자가 보낸 자는 바닷물 역할을 해 준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물이 없어 죽지 않는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뛰쳐나와 잡아먹히거나, 물이 없어 죽을 뿐이다.
82. 세상이 악하여 하늘이 보낸 자를 억울하게 못질할 때는 그들을 보고 치를 떨면서 “악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구원자에게만 자기 구원을 맡겨 놓고 자기중심으로 제 갈 길을 간다. 결국 구원자를 못질한 자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구원자를 믿고 따르면서도 자기가 혈기 나는 대로 구원자를 또 못질한다. 구원자 한 번 못질에 10000년 지옥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라.
83.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휴거됐는지 알려면 구원자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구원자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섭리사에 있으면서도 사망에 거한다는 것을 알아라! 영이 사망에 있어도 육은 멀쩡하고 별 표가 안 난다. 가끔 느껴지기만 한다.
84. 구원자와 끊어지면, 구원의 중력권에서 밀려나게 된다.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그 때 안 하면 안 된다.
2. 하늘과 약속한 것을 안 하고 하늘과 약속한 시간을 안 지키면, 하늘의 심정을 상하게 한다.

3. '시간 약속'을 지키고, '기도 약속'을 지켜라.
4. 성자와의 약속을 지킬 때, 성자는 말한 대로 해 주신다.
5. 성자는 지구 세상 모두에게도 약속하셨고, 섭리세계 모두에게도 약속하셨다. 그리고 약속대로 시간을 지켜 행하신다. 그러나 성자와 약속한 것과 약속한 시간을 안 지킨 자는 그냥 지나치신다.
6. 버스도 비행기도 제시간에 맞춰 타려고 기다린다. 성자도 제시간에 맞춰 기다려라.
7. 버스나 비행기를 타는 자가 시간에 맞춰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성자도 맞는 자들이 준비하고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다.
8. 2000년이나 기다린 성자요 주다. 신부가 준비하고 나와서 멀리서 오는 성자와 주를 발견하고 부르며 달려가야 된다.
9. 태울 자가 기다리면 이미 탄 자들이 시간 됐으니 가자고 재촉한다. 고로 사랑하는 자가 아직 안 왔어도 떠나야 된다.
10. 신랑을 맞을 자는 신부다. 고로 신부가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된다.
11. 새벽, 낮, 초저녁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면 같이 떠나기다.
12. 성자가 재림하실 때만 기다리는 신부 입장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매사에 욕을 가지고 혼과 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이때다.
13. 성자는 지금도 도적같이 매사에 오고가신다.
14. 맞는 자만 알고, 못 맞는 자는 모르고 산다.
15. 맞고서, 맞은 표를 내라.
16. 성자를 맞아야 욕이 듣고 행하여 혼 변화, 영 변화된다.
17. 신부가 신랑을 맞으면 사랑의 표가 나는데, 첫 번째로 대화하게 된다. 두 번째로 일하게 된다. 고로 성자를 맞았으면 대화하며 표를 내고, 할 일을 하며 사랑의 표를 내라.
18. 성자를 맞을 때마다 한 치라도 더 차원을 높여서 맞아라. 이것이 성자의 희망이다.
19.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성자께도 앞날의 희망이 한정되어 있다.
20. '변화의 희망'을 가지고 행하면 혼도 영도 차원 높은 세계로 가서 급기야 휴거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21. 최고의 축복 중의 하나가 '변화의 축복'이다.
22. 변화돼야 변화된 만큼 그 차원의 축복을 누린다.
23. '변화의 역사'는 자기가 듣고 자기가 행하여 하는 것이다.

24. 변화된 자와 변화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25. 변화되는 만큼 변화의 차이가 있는데, 아예 변화된 것과 변화되는 도중에 있는 것은 아예 달라서 딴 세계다.
26.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는 태 속의 태아와 같다.
27. 완전히 변화된 자는 태 안에서 나온 아기와 같다.
28. 완전히 변화된 자는 완공된 집과 같다.
29. 완전히 변화된 자가 구원받은 자다.
30. 휴거를 1차, 2차, 3차로 구분했다. 1차 100선은 땅을 산 상태와 같다. 2차 200선은 땅을 정리하여 집을 만든 상태와 같다. 3차 300선은 다 만든 집을 사용하는 상태와 같다.
31.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변화를 인정’해야 그 차원으로 변화된 것이다.
32. 진정 변화됐으면 옛것을 행하되, 다른 차원으로 행한다.
33. 변화되면, 육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다른 차원에 있고, 혼도 다른 차원급으로 다니며 활동한다.
34. ‘변화’는 새로운 차원으로 살아났다 함이다.
35. 비행기를 타면 땅에서 발을 떼고, 더 차원을 높이면 땅이 안 보인다. 이와 같이 자기가 변화되면 자기가 확실히 안다.
36. 변화되면, 성자와 주와 자주 대화하고 만나며 교통한다.
37. 변화되면, 성자가 많이 주시니 얻게 된다.
38. 변화되려면,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라.
39. 변화되려면, 월명동을 개발하듯 몸부림쳐 행해라.
40. 변화는 순간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지역을 개발하듯, 집을 짓듯, 태 안의 아이가 크듯 ‘한 기간’ 동안 행해야 ‘한 단계’ 변화된다.
41. 과일이 되기 전에 꽃에서 한 기간이 지나야 열매로 변화되고, 열매가 열려도 한 기간 동안 커야 온전한 열매로 완성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영적 변화도, 영적 휴거도 그러하다.
42. 변화되고 자꾸 다음 단계로 변화돼야지, 그냥 있으면 거기서 굳어 그 차원의 영이 되고 만다.
43. 끝없는 변화를 이루어라. 월명동이 계속 새롭게 작업하여 변화되듯, 끝없이 자기 변화를 이루어라.
44. 변화에는 만족이 없다. 그만큼 인간의 영은 끝없이 차원을 높여 변화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까지 변화다.
45. 온전히 변화돼야 천국에 가서 다 사용한다.

<2013년 12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46.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할 때, 내가 성자와 대화로 연결하지 않고 기도만 하니 성자께서 옆에서 하신 말씀) 허공에 이야기하지 말고, 나 성자와 이야기해라.

47. 사람끼리도 교통하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들이 발생한다. 성자와 교통하면 묻혀 있던 뇌의 생각이 많이 나타나서 알게 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서 새롭게 알게 된다.

48. 하루 종일 성자가 옆에 계셔도 육신을 가진 우리가 대화하지 않으면, 성자와 안 통한다. 성자가 먼저 말해도 성자는 영이고 우리는 육이라 잘 모른다. 영계와 육계는 딴 세계다. 항상 육신 가진 자가 먼저 말해야 통한다.

49. 자기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칼날같이 세우고 성자를 불러야 성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들린다.

50. 성자의 주파수에 맞춰야 성자의 말이 들린다.

51. 정신과 생각이 강하고 확실한 만큼 육계의 것도 확실히 보이고, 꿈의 혼체가 혼계에서 볼 것을 확실히 보게 된다.

52. 정신이 흐릿하면, 눈이 흐릿한 것같이 잘 안 보인다.

53. 육신도 시력이 높으면 잘 보인다. 정신의 눈,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다. 정신이 강하면 혼계의 것도 잘 보이고 강하게 느껴지고, 육계의 것도 잘 보이고 강하게 느껴진다.

54. 마음·정신·생각의 ‘강도’가 강해야 된다. 보석도 ‘경도’에 따라 값어치가 다르다. 다이아몬드의 경도는 10, 사파이어와 루비의 경도는 9, 에메랄드의 경도는 7.5~8로 각각이다. 마음·정신·생각도 그러하다. 집중하는 대로 ‘강도’가 달라진다.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여 강해져야 자기 혼체도 잘 보이고, 상대의 혼체도 잘 보이고, 혼계의 혼체들도 잘 보인다.

55. 기도를 깊이 하면, 집중력이 높아져 생각이 하나가 된다. 고로 영적인 것도, 환상도 또렷이 보인다. 낮에 주변을 어둡게 하면 화면이 잘 보이듯, 집중력이 높아져 생각이 하나가 돼야 영적인 것이 또렷이 잘 보인다.

56. <영계>는 ‘영의 생각의 강도’, <육계>는 ‘육의 생각의 강도’다.

57.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면, 혼으로 보게 된다.

58. 마음·정신·생각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일 때 집중한 것이다. 그러면 혼계와 영계를 보면서 기도하게 된다.

59. 잠을 잘 때는 육성이 없어지니, 혼체가 확실히 활동한다.

60. 죄 중에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가 있다. 게으른 것,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 자기가 시험에 들어 사탄에게 끌려간 것, 자기 자신의 결심이 무너져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이성 죄를 지은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다. 고로 자기에게 해가 된다.

61. 타인에게 지은 죄가 있다. 남을 악평하고, 욕하고, 무고하게 죄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여 남을 오해하고 의심한 것이다. 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지은 죄보다도 더 복잡한 죄다. 이런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 회개하여 풀어야 된다.

62. 더 큰 죄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육으로 삼고 행하는 자에게 지은 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통해 행하시는데, 그를 원망하고 의심하고 오해한 죄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섭리 이상세계에 못

들어오고, 휴거되지 못한다.

63.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시켜 행하신다. 그러나 무지하여 ‘그 사람’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된다.

64. 기도해 보아라. 누가 시켰는지 알게 될 것이다.

65. 세상으로 가려고, 하나님까지 원망한다.

66. ‘원망’은 원수를 맺고 망하게 하는 행위다.

67. ‘원망’ 후에는 ‘멸망길’이다.

68. 욕신이 살아 있어도 그 영이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는다.

69. 욕신이 죽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욕신이 살아 있어도 욕도 세상에 살면서 그 행위에 따라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살고, 그 혼과 영도 영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산다.

70. 구원받은 영은 욕신이 살아 있을 때에도 영계에서 그 차원으로 천국이나 낙원 주관권에서 산다.

71. 욕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욕신이 살아 있을 때부터 그 행위대로 ‘영의 삶’이 영계에서 진행된다.

72. 어떤 사람은 욕신이 살아 있어도 병으로 인해 6개월, 1년, 혹은 3년 선고를 받고 살고 있다. 이와 같이 ‘영’도 욕신이 살아 있어도 지옥이나, 무저갱이나, 음부로 선고받아 사는 영들이 많다.

73. 영계에 가서 보면, 이단의 영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의 영들, 또 우상의 영들과 우상을 섬기던 자들의 영들, 또 많은 자들을 사망으로 보낸 영들은 지금 지옥에서 살고 있다. 성자께 기도하고 가 보아라.

<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기도>와 <대화>는 다르다.

2. <기도>는 혼자 하는 말이고, <대화>는 서로 주고받으며 말하는 것이다.

3. 기도 위의 차원이 대화다.

4. ‘자기 인식’으로 기도와 대화가 갈린다.

5. 같은 단계에서도 자기 생각의 결정에 따라서 <기도>가 해지거나 혹은 <대화>가 해진다.

6. <대화>는 가깝게 대하는 마음이고, <기도>는 멀리 대하는 마음이다.

7.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도 상대를 멀리하고 하는 대화가 있고, 상대를 가까이 대하며 하는 대화가 있다. 이와 같이 성자 앞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기도’냐, ‘대화’냐 갈리게 된다.

8. 편지를 해도 내용을 보면 멀리 대하며 편지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대하며 편지하는 사람이 있다. 기도할 때도 그러하다.

9. 성자는 깨끗하고 성결하니, 깨끗이 하고서 대해라.

10. 성자도 상대의 행위에 따라서 멀리 대하기도 하시고, 가까이 대하기도 하신다.

11. 자기 행위에 따라 성자를 멀리 대하기도 하고, 가까이 대하기도 한다.

12. 사탄은 행위가 악하여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아예 가까이 대하지 못한다. 마치 찬란한 빛 앞에 어둠이 가까이 못 가는 것과 같다.

13. 사람이 생활하면서 더러운 곳은 가까이 안 가고 피한다. 깨끗하고 좋은 곳일수록 가까이 간다. 성자도 그러하니, 깨끗하게 회개하고 살아가.

14.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느냐. 이것을 알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게 된다.

15. 사람끼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진지하게 말하면, 상대가 감동을 받으면 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상대의 마음에 가서 그가 자기 몸이 되어 행해 준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우리가 간절히 말하고 기도했을 때 감동받으시면, 그 말을 받아들여 행해 주신다. 고로 기도는 합당하게 간절히 해야 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사역자를 쓰고 행하신다. ① 어느 때는 기도한 당사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담대히 행하게 하여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② 어느 때는 만물과 각종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17. 기도하여 하나님이 해 준다고 응답하셨어도 ‘때’가 돼야 해 주신다. 합당한 때에 받아야 제대로 쓰기 때문이다. 겨울에 아이가 얼음과자를 사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엄마가 대답하고 추운 겨울이 지나 여름이 되면 사 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해 준다고 응답하셨어도 ‘때’에 맞게 주시어 다른 자들이 뺏어 가지 못하게 해 주신다. ‘귀히 쓸 때’를 맞춰 주신다.

18. 교회에 처음 왔어도 의무적으로 기도해라. 자기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고 자녀들이니 자기 사연을 하나님께 고하여 얻고,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써라. (이를 교회에 처음 왔거나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19. 교회에 안 다니는 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합당한 사람을 통해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이는 합당한 기도이니 응답하시고 사람을 보내어 인도해 주시든지, 본인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여 직접 찾아가게 해 주신다. / 말씀을 배울 때도 기도해라.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세요.” 기도해라. 합당한 기도이니, 응답하신다. (이를 교회에 처음 왔거나 말씀을 배우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20.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질 것은 수시로 해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모르고, 믿어도 이를 알지 못하면... 자기 수고로 생활 속에서 얻는 것으로 안다.

21. 어떤 기도는 하고 나면 바로 주시고, 어떤 기도는 하고 나서 믿고 기다리고 진정 간절히 원하는지 한 기간을 지켜보시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주기도 하신다.

22. 기도한 자가 기도한 것을 받고서 정말 잘 쓰는지 보시고, 잘 쓰는 것을 인정받으면 또 주신다. 받고 나서 잘못 쓰면, 잘 안 주신다.

23. 기도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한 것을 놓고 그 면에서 열심히 행해야 더 빨리 주신다. 기도하고 입으로만 행하고 몸을 놀리면 안 된다.

24. 기도하고 나서 찾을 것은 눈이 닳도록 열심히 찾아라. 그래야 찾게 된다.

25. 하나님께 해결받을 죄가 있어 형벌 기간이 걸려 있거나 각종 건이 걸려 있으면, 기도하기 전에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된다.

26. 기도한 것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귀히 쓴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고마움도 가치도 저버리고 산다. 그러면 가치를 상실하여 받은 것이 다른 데로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받은 것을 다른 데 팔기도 한다.

27. 기도하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것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도도 잘해야 되고, 때를 기다리기도 잘해야 되고, 받은 것을 쓰기도 잘해야 된다.

<2013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28. 자기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지고 있으니, 일단 기도해 봐야 된다. 자기 생각 차원에서만 기도하면 너무 작다. 뇌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기도해라.

29.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어도 하나님이 잊을까 생각하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지구 세상 70억 명 중의 30억 명은 하나님께 각종 것을 놓고 기도한다. 1인당 2~3가지는 놓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10가지를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루에 100억 가지도 넘는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라 잊지 않으시지만, 혹여 잊으실까 생각하고 내가 구한 것을 잊지 않으시도록 수시로,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30. 기도해도 '때'가 돼야 주신다.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2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 때가 되어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행하셔도 자기가 모르기도 한다. 고로 자기도, 하나님도 잊지 않도록 수시로 기도하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31. 어떤 사람은 기도해 놓고 섭리사를 나가서 다른 사람이 그가 구한 것을 받았다.

32. 사랑하는 제자 중의 한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기도의 용사'였다. 고등학생 때 꿈을 꿔는데, 한 젊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금 지휘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휘해 주고 다녔는데, 많은 인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했다. 멀리서 쳐다봤는데, 그가 갑자기 외국으로 가서 한 동안 지휘해 주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지휘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꿈을 꾸고 잊고 있었는데, 요즘에 선생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다가 그 꿈이 생각났다고 하며 사연을 전해 주었다. '오래 전'에 성자가 계시를 주신 것을 '지금' 응답받고 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 그 계시를 잊고 산 것이었다. '소통'해야 잊었던 것들이 생각나고, 선생과 연결되고 성자와 연결된 깊은 것들이 생각나 깨달아진다.

33. 10년 전, 20년 전에 성자가 꿈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무슨 꿈을 꿔는지는 잊었을 것이다.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는데는 잊었을 것이다. 꿈은 성자가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꿈을 성취하려고 부르신다.

34. 꿈에도 낮에도 기도한 것을 계시해 주니, 잘 보아라. 잘 보고 깨달아라.

35. 꿈에 내 혼이 지구가 처음 형성되었을 때를 보았다. 화산이 터져서 바위와 돌과 땅이 화산재에 녹아 흘러갔고, 땅에서는 더운 김만 올라왔고,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도 풀 한 포기 없었다. 내 혼은 이곳저곳을 혼자 다니며 수석을 찾고 다녔다. 그런데 화산 폭발 때문에 돌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구멍만 뚫려 있고, 비바람이 없으니 매끄럽게 깎이지 못해 날카롭고 거칠었다. 꼭 생시와 같았다. 거기서 굴이 있는지 찾아봤다. 여기저기 다니는데 바위 밑에 좁은 구멍이 있었다. 바위 밑으로 들어가려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다 타서 재가 되어 있었다. 흙을 조금씩 파내어 겨우 바위 밑으로 들어가 보았다. 들어가 보니, 큰 굴이 있었다. 굴의 벽과 천장은 단단했다. 석회석도 없고 수정 고드름도 없는 그냥 광산 굴 같았다. 지구가 처음 형성되는 때라서 땅이 뜨거웠고, 화산이 폭발한 후에 조금 식은 것같이 후끈거렸는데, 굴속에 들어가니 시원했다. 혼자 좋아서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굴이 점점 커지면서 웅장해졌다. 그곳에는 현대 음식이 있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성자의 신부들과 모임하면 좋겠다.' 하며, 꿈이지만 생시같이 소원하면서 굴에서 나왔다.

밖에서 누가 못 보게 굴 입구를 흙으로 덮어 메우고 나왔다. 굴에서 나와 사방 천지를 둘러보니 여기저기가 산처럼 솟아 있고, 어떤 곳은 꽤 높았다. 혼이나 영도 다니지 못할 때의 지구였다. 사방 천지에 사람도 하나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40~50억 년 전의 지구의 모습으로 지구는 뜨거운 열기를 적당히 밖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하나님이 지구를 식히는 중이었다. 내 혼은 원시인이 되어 맨발로 다녔다. 새벽기도 시간이라서 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생생한 그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했다. 깨닫고 보니, 지구가 처음 형성될 때의 모습을 성자가 뜻이 있어 보여 주신 계시였다. 일주일 동안 그 꿈을 풀어 보았다. ‘왜 그것을 보여 주셨는가? 내가 갔던 그 지역이 지구 세상의 어떤 한 지역일까? 아시아 쪽인가, 유럽 쪽인가?’ 생각해 보았다. 지구 세상의 높은 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꿈을 꾸 후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을 찾았다.

36. 꿈에서 본 것을 섭리사에 와서 보고 확인한 자들이 많다. 섭리사에 와야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다.

37. 어떤 사람은 지금의 월명동 자연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꿈에서 봤다고 했다. 그동안 관광지 이곳저곳을 다녀 봐도 꿈에 본 곳이 없어서 ‘영의 세상인가?’ 했다고 한다. 그러다 전도되어서 5월 달 꽃 피는 월명동에 와 보고 꿈에서 본 모습과 똑같아서 잔디밭에 앉아 감탄했다고 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깨달았다고 했다.

38. 모두 뜻이 있으면 계시해 주신다. 계시를 받고 찾으려고 해야 찾는다.

39. 주려고 계시해 주는 것이다.

40.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보다 더 가까이 있는 존재자가 ‘신’이다. 사람은 24시간 가까이 함께 있지 못해도 신은 항상 옆에 계신다. 마음속에도, 뇌에도 연결되어 있다.

41.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태양 본체는 멀리 있다. 그러나 태양의 빛과 열기와 에너지는 우리 인간의 몸에, 우리 주변에 가까이 붙어 있다. 하나님도 이같이 존재하신다. 고로 가까이 붙어 계신다. 하루에도 100번, 200번, 300번씩 하나님을 불러 보아라. 그러면 마음으로 대답도 하시고, 몸으로 뜨겁게 열기를 가해 주어 징조를 보이며 대답해 주신다. 어느 때는 “나 여기 있다.” 하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 만물을 통해 보여 주시고, 우리 머리로 손으로 쓰다듬어 주신다. 그때는 신기하여 “누구야?” 하고, 저절로 입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신다.

4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간이 뇌가 굳어 그 행하심을 모를 뿐이다.

43. 기도하여 받아라. 그리고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써라. 그러면 좋아서 또 주신다.

44. 주셔도 각자 그릇대로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

45. 기도하여 물질을 받고 세상으로 쓰고 타락길을 가는 데 쓰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틀어 버리신다.

46. 성자가 준 것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낙을 위해 쓰면, 모두 틀어 행한 대로 대하신다.

47. 어떤 사람은 성자가 준 것을 가지고 섭리사에 등 돌리고 세상으로 가서 썼다. 성자에게 받은 재물을 불의한 데 쓰니, 태풍에 가옥이 날아가듯 날아가 폐허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손대고 심판하시면, 소돔 땅이 되고 폼페이가 된다.

48.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성으로 빠져 타락되었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을 다 끊으셨다. 그리고 물질이고, 사람이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마다 지옥 고통이 되게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돌이키지 않으면 ‘인생 일생, 영혼 영원’까지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49. 축복을 줘도 감당하지 못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신다.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50. 생명을 전도하여 성자와 주와 일체 시켜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하는 데 전념하지 않고, 그 생명을 자기 상대로 삼고 지내는 자는 생명의 공적이 없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51. 생명을 전도하여 부지런히 보낸 자와 일체 시키고, 더욱 변화시키고 부활시켜 성자에게 드려야 된다.
52.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듯 성자가 생명의 포도원, 경제의 포도원 등 각종 포도원을 맡기셨다. 고로 주인의 것이니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듯, 전도하여 생명을 성자에게 드리고 축복받은 것을 성자와 함께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행한 대로 대하신다.
53. 저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들만 키우려 하지 말고, 자기 사업만 키우려 하지 말아라. 외나무다리에서 양손에 물건을 들고 가는 자가 양쪽 무게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넘어져 떨어지듯,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실패'로 넘어지고 만다.
54. 기도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55.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야 전도되는 생명도 성령 충만하여 그 영향을 받아 잘 크고,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다.
56. 전도하려고 결심하고 하면, 하루나 일주일 만에 꼭 할 수 있다. 잘 안 돼야 한 달 걸린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20년 됐어도 전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전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도하려고 결심하지 않는 자들이다.
57. 고기 잡는 법, 사냥하는 법도 배우면 쉽다. 전도하는 법도 배우고 하면 쉽다.
58. 전도하는 것도 '공적이 높은 때'가 있다. 그때가 이때다! 곧 휴거 때다!
59. 세상의 집값도 물건 값도 시세가 높아 금값일 때가 있다. 전도하는 것도 금값일 때가 있으니, 곧 지금 이때 휴거 때다!
60. 세상은 의인도 악인도 한 세상에서 같이 살되, 그 삶이 상-중-하로 나뉘어져 따로 살아간다. 천국에 가면, 그 영의 삶이 완전히 쪼개져 각각 살아간다. 낮은 차원에 있는 영들은 높은 차원의 세계에 갈 수 없고, 높은 차원의 세계에 있는 것도 실감을 못 한다. <영계의 영의 삶>은 거의 육계에서 자기 육이 살았던 삶으로 결정되는데, 시대에 따라 누구를 믿고 어느 시대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각자 행위대로 결정된다.
61. 전도하여 생명을 구한 자는 성자가 천국에서 그만한 대우를 해 주시는데, 그 영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해 주신다. 그리고 최고의 공적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62. 많이 전도한 자의 영은 성자가 늘 찾으신다.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 잔치하며 챙겨 주신다. 한 나라에서 국가의 공적자들은 매년 대통령이 청와대에 불러서 오찬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
63. 전도 공적이 크면 사명도 크고, 영이 그만한 지위를 갖게 된다.
64. 자기 자녀나 애인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찾아다 준다면, 그 공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물며 생명을 살려 하늘 앞에 데려와 준다면, 그 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65. '메시아의 최고 공적'은 첫째, 성자를 사랑하여 맞은 것이며 / 둘째, 조건과 책임을 한 것이며 / 셋째,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이다.
66. 어떤 사람은 수십만 명이 하나님을 믿게 해 줬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영은 사망으로 가 있었고, 그를 따르던 자들의 영도 사망으로 가 있었다. 알고 보니,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자기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다. 고로 자기

도 구원받지 못하고, 따르던 자들도 사망으로 보낸 것이다. 저 영의 세계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을 때는 일점일획도 용납이 없다.

67. 종교 지도자들이 잘 대해 주며 도움을 주면, 따르는 자들은 목숨 걸고 지도자를 대하면서 잘 따른다. 그런데 지도자는 그 힘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 생명들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일체 시키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지도자 먼저 삼위와 일체 되고, 따르는 자들도 삼위와 일체 시켜야 된다.

68. 전도하여 그 생명을 자기 수중의 사람으로 삼거나,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거나, 인생 삶의 대상자로 삼지 말라. 정식으로 하나님과 성자와 구원자에게 넘겨주어 정확히 하늘 생명으로 길러야 된다.

69. <그림> (*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마다 주와 일체 된 연결 고리가 끊어졌는지 다시 확인해라. 주와 연결되지 않고 사는 자는 열차에 연결되지 않은 마지막 객실 칸과 같다. 그런 사람은 항상 큰소리치지만 그 자리, 그 위치다.

<2013년 12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몰라서 제대로 선택을 못 한다. 아는 자가 충분히 가르쳐 주면, 몰라서 제대로 선택을 못 하는 사람도 70% 이상 좋게 선택한다.

2.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사랑도 성자의 생각으로 하라는 것이다. 육으로 하지 말고, 뇌로 영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3. ‘자기가 극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과 같다. 남녀가 사랑하는 것만 관계가 아니다.

4. 자기가 잠을 좋아하면, 잠과 사랑하며 관계하는 것이다.

5.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과 사랑하며 관계하는 것이다.

6. 우상을 좋아하는 자는 우상과 관계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7. 자기가 극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과 같다.

8. 기도의 여인, 말씀의 여인, 전도의 여인, 강의의 여인, 관리의 여인, 그림의 여인, 시의 여인, 설교의 여인이라 표현한다. 왜 ‘여인’으로 표현했겠느냐. 그것을 좋아 사랑하니 ‘여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로 기도를 사랑하여 기도하면, “나는 오늘 기도의 여인을 만나 사랑했다.” 하는 것이다. / 세상만사 모든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

9. ‘기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해라.

10. ‘말씀’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해라.

11. ‘성자’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해라. 성자와의 사랑은 육 사랑보다 차원이 높고 영원한 ‘뇌 사랑, 정신 사랑, 영 사랑’이다. ‘뇌’가 가면 ‘마음과 정신’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간다.

12. 상대가 근본을 깨달아야 전달된 것이다.

13. 계시는 풀고 깨달아야 전달된다.

14. 성자는 ‘이와 같이 그러하다.’ 이것을 계시해 주고 깨우쳐 주려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

15. 극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성 관계 하는 것으로 보여 주신다. 우상을 섬기는 자, 술 담배를 좋아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자,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자, 선한 쪽과 진리를 좋아하는 자, 말씀을 좋아하는 자, 성자를 좋아하는 자 모두 그것을 극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할 때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보여 주며 계시해 주신다.

16. 성자는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차원에 올라가서 느끼고 깨닫고 보고 알게 하는 방법으로 계시를 해 주신다.

17. 누구든지 그 차원에 가면, 본인이 보고 느낀다.

18. 자기 실력으로 가는 차원의 세계다.

19. <성자 음성> 매일 하면 성공한다.

20. 운동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생명 전도나, 어떤 것을 만드는 일이나,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나, 만사의 모든 일도 ‘매일 정기적으로 하면’ 성공한다.

21. 매일 성자와 그 육으로 쓰는 분체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체 되어 살면, 천국길로 가서 성공한다.

22. 밥 먹듯이, 잠자듯이, 씻고 깨끗하게 하듯이, ‘목적’을 두고 매일 할 일을 해야 승리하고 성공한다.

23. 이 말씀은 일억 천만금 말씀이다.

24. 월명동에 나무를 심어 놓고 매일 관리하면 성공한다.

25. 아내도, 남편도 매일 관리하며 매일 사랑의 대화를 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26. 매일 새벽기도, 매일 말씀 듣기, 매일 성자와 주와 대화다. 생활 속의 기도와 대화다.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가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주셨다. 받은 것을 가지고, 360도 각 방면을 보고 더 깊이 깨달아라. 받은 것을 일부만 알고 대하면서, 또 새로운 것만 달라고 하느냐.

2. 받은 것을 더 깊이 보고, 더 귀히 보고 대하며 행해야 된다.

3. 완전히 알고 귀히 쓰면, 성자가 또 주신다.

4. <성자바위>를 발견하고, 거기서 ‘두 개의 형상’을 찾았다. 이에 성자에게 늘 감사하고 성자를 사랑하면서 “이 바위를 어떻게 이같이 만들었어요?” 하고 물었다. 6개월 절식 기도를 하면서, <성자바위>를 보고 또 보면서 감격하며 “하나님 바위와 성령님 바위도 주세요. 이왕이면 크고 웅장한 것으로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사실 ‘<성자바위>처럼 이런 바위가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석막리 골짜기에 보이는 돌 중에서는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대한민국 강산에 땅속에 묻힌 돌이 있으면 꼭 주세요. 또 월명동 석막리 근처에 묻혀 있으면 너무 아까우니 꼭 찾게 해 주세요.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 형상이 있는 돌이 땅속에 묻혀 있으면 얼마나 아까워요? 혹시 더 있어요? 없는데 달라고 하면 제기도 시간만 헛시간이 되고,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면 성자도 못 주시니, 아예 구하는 자가 알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더 있어요? 지구 세상에 있으면, 사 오겠습니다.” 했다. 먼저 “한국에 있어요?” 하고 물으니, 성자는 “있다.” 하셨다. 그다음에는 “8개 대도시 안에 있어요?” 하고 물으니, 성자는 “있다.” 하셨다. 그다음에 “충청도에 있어요?” 하고 물으니, 성자는 “있다.” 하셨다. 한 번 더 묻기를 “혹시 금산 쪽에 있어요?” 하고 물으니, 성자는 “그렇다.” 하셨다. 그래서

“돌이 많은 석막리에 있어요?” 하고 물으니, 성자는 “그렇다.” 하셨다. 그래서 내 혼체를 석막리에 보내어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 또 성자에게 물었다. “내 혼체가 찾았는데도 못 찾겠어요. 어디쯤에 있어요? 지역만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월명동에 있어요?” 하니, 성자는 “그렇다.” 하셨다. 이제는 자신이 생겨 내가 찾아보겠다고 하고 찾아왔다. ‘분명히 땅속에 있을 거야. 어디쯤일까?’ 하며, 조금이라도 지면으로 나온 돌이 있으면, 내 혼이 가서 꿰뚫어 보았다. 며칠을 그렇게 찾다가, 심부름꾼을 보내어 ‘여자 형상 돌’을 찾게 했다. 그런데 여자 형상 돌은 못 찾고, 선생을 닮은 남자 형상 돌을 찾았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은 남자 형상보다 여자 형상을 찾아야 하고, 내 형상보다 근엄한 하나님 형상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옮길 수 있는 돌이어야 한다.” 했다. 그러나 결국 못 찾았다. 그러다가 <성자바위> 사진을 다시 보면서 ‘정말 신기해. 정말 귀하다.’ 하며, 성자에게 “<성자바위>에 이미 있는데 못 찾은 것이 있나요?” 하니, 성자는 “깊은 것을 말하면 신비성이 없다.” 하셨다. 다시 성자에게 물었다. “하나님 상징 돌은 정말 귀해서 못 찾겠어요. 그리고 현재 운동장 끝에 있는 <성령바위>는 어차피 상징이니, 웬만하면 그 정도로 되겠어요. 그래도 좀 아쉬워요.” 했다. 밤늦도록 기도하며 성자와 대화했다. 또 점심 식사 중에도 <성자바위> 사진을 보면서 성자와 이야기했다. 이때 내 마음이 크게 감동되면서 <성자바위>의 앞뒤 모습은 봤는데 옆의 좌측, 우측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성자는 <성자바위>를 각도별로 자세히 찍어 보내라 하여 사진국에 말했다. <성자바위>를 각도별로 찍은 사진은 5장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즉시 <성자 신의 형상 우측>에 눈, 코, 입, 입술, 턱이 있는 아주 근엄한 남자 얼굴이 보였다. ‘이만하면, 하나님 상징으로 충분하다.’ 하며 ‘하나님 형상’으로 정했다. 박수를 치고 좋다고 하면서 성자에게 말했다. “보기에 어떠세요? 만일 이 형상을 ‘성자 형상’으로 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해요.” 했다. 성자는 “아니다. 나는 현재 형상으로 하려다.” 하셨다. 성자는 나를 보고 “네 형상으로 할래?” 하시는데, 웃음이 나왔다. “이 근엄한 얼굴은 신의 얼굴이지 사람의 얼굴로 할 수 없어요. 너무 안 맞아요. 지금 저의 감동대로 전능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할게요. 어차피 하나님 본체는 아니니까 비슷하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 맞은편>에 ‘여자 형상’이 보였다. 머리, 이마, 코, 입, 턱이 선연히 보였다. 내가 그리도 찾던 ‘성령 형상’외에는 누구도 상징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 형상은 ‘성령 형상’으로 정했다. <성령님 형상 위>를 보니, 무기를 싣고 있는 팬텀기 형상이 보였다. 겹쳐 보이는 각도 형상인가 보니, 아예 형상이 잡혀 있었다. 이는 섭리사의 무기인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심판’을 상징한다 했다. <성령님 형상 옆>을 보니 치타 얼굴이 보였다. 정말 치타 얼굴과 비슷하여 보는 순간 “오앗! 치타네! 어쩔 이렇게 큰 치타 얼굴 형상이 있는데도 아무도 못 봤지?” 했다. 그 순간 치타로 별명을 지어 준 조은이가 생각났다. 성령님 형상 쪽에 치타 형상이 있으니 더 신기했다. 성령님도 여성 신이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조은이도 여자인데, 또 섭리사의 모든 자들은 하늘 앞에 여자 입장인 신부로서 빠른 구름이 되어 행하는 치타를 상징하니, “맞다!” 했다. 그리고 <성자 신의 형상 쪽>을 보면, 발바닥이 보였다. 예전에도 사진을 보며 발바닥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이는 ‘성자 재림 상징’이다. 발바닥 형상을 보면 뭉개져 있는데, 이는 지구촌 인생들 휴거시키려고 발바닥이 뭉개지고 닳도록 돌아다니신 것을 상징했다. 또 그곳만 색이 붉은데, 이는 지구촌에 신부 한 명만 있어도 쫓아다니니 피가 난 성자의 발을 나타낸 것이었다. 발가락이 일곱 개인 것은 ‘7’은 완전 수이니, 완전하신 성자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곳은 거룩한 곳’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곳은 삼위일체가 육신을 쓰고 나타나 1000년 역사를 펴는 곳이다. 복음을 시작한 곳이다. 나 성자가 손발로 쓰면서 복음을 외치는 그 구원자가 태어난 곳이다. 고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셨다. <성자바위>에 있는 형상은 ①성자, ②그 분체인 동방의 독수리, ③하나님, ④성령님, ⑤성령 역사의 사역자인 부흥강사를 상징하며 또한 섭리사 성자의 신부들을 상징하기도 하는 치타, ⑥섭리사 무기인 말씀을 상징하는 팬텀기, 그리고 ⑦발바닥 형상이다.

5. <성자바위>를 성자에게 받고서 자꾸 더 깊이 보니, 더 많은 형상을 찾고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성자가 주신 <시대 진리의 말씀>을 더 달라고만 하지 말고, 기도하여 더 차원 높이 보고 행하여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깊은 진리를 찾게 된다.

6. <휴거 말씀>은 ‘시대 말씀의 핵’이다. 이미 전할 만큼 다 전했다. 모두 그 말씀을 깊이 보고 깨닫고 행하여 휴거될 일만 남았다.

7.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에만 중독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방향을 다르게 하여 전하니, 듣기만 하여 ‘관념’으로 끝내지 말고 이제는 행하여 ‘실체’를 얻어라!

8. 더 새로운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휴거되려 하지 말아라.

9. 지금까지 섭리역사 35년 동안 전한 수만 번의 설교 말씀과 2500편이상의 계시 말씀으로 ‘휴거될 말씀’이 다 나갔

고, '성약역사 1000년 동안 가르칠 말씀'까지 다 나갔다.

10. 이제 시대 말씀을 행할 일만 남았다.

1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구원의 말씀을 일반 책 읽듯이 훑어보지 말아라. 깨달아질 때까지 반복해서 간구하면서 봐라. 깨달았으면 바로 실천하여라.

12. 이제 <영 휴거 때>가 되어 성자는 가셔야 된다. 고로 수만 번의 설교와 2500편의 계시를 해 주셨다. 그 말씀들을 깊이 봐야 된다. 성자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생명시하여라. 자세히 읽어야 찾는다. 기도하여 성자와 대화하지 못할 거라면, 쉽게 말씀을 읽고 계시 글을 읽어라.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으면, 그것이 성자와 대화한 것이다.

13. 예수님이 3년 동안 전한 수십, 수백 편의 복음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반복하며 전하면서 신약역사를 썼다. 이 시대에는 그때보다 100배는 더 많이 말씀을 주었다.

14. 성자가 주신 말씀들을 체계화하여 <시대 성경>을 만들어서 읽게 해야 된다. 설교집은 이 시대 성경이다.

15. 천지는 변해도 성자가 그 욕을 통해 하신 말씀은 변함없다.

16. 행함으로 욕도 영도 시대를 누리며 살자.

17. 과거에 원하고 뿌린 것을 거둘 때가 지금이다. 거두고, 또 뿌리기다.

18. 모임만 하면 말씀을 달라 하지 말고, 이미 준 말씀을 가지고 외쳐라. 전도해라. 가르쳐라.

19. 말씀은 줬는데, 생명 전도는 안 하니 되겠느냐.

20. 고기밥은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바다나 강에 나가서 낚시질을 안 하니 고기밥만 쌓여 있다. 각종 물고기들이 밥 달라고 주위에서 입 벌리고 놀고 있다.

21. 말씀으로 전도해라. 자기만 먹지 말고, 남는 것으로 생명을 살려라.

22. 고기 잡으라고 따로 말씀을 줬더니, 낚시질은 안 하고 먹고만 있다. 답답하다.

23. 전도 못 해서 휴거 100선에 못 가고, 200선에 못 가는 자들이 많다. 휴거시키는 데 '생명 구원'을 꼭 본다. 메시아 예수님도 일생 동안 전도하고 다녔다. 전도하지 않았으면, 메시아 사명을 했겠느냐.

24. 전도를 많이 해야 자기 생명도 완전해진다.

25. 월명동을 더 새롭게 만들 것만 생각하느냐.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써라. 성자와 같이 써야 된다. 혼인 잔치 하면서 써야 된다. 신랑도 신부도 안 쓰고 만들기만 한다면 둘 다 지겨워서 쓰러지고, 만든 것도 못 써먹고 끝난다.

26. 애인과 진수성찬을 싸 가지고 하루 놀러 갔다. 점심때가 되도록 천막 치고, 환경 만들고, 풀 깔고, 내를 막아 수영장을 만들기만 하느냐. 1~2시에는 식사하고, 주위를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수영하고, 사랑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해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이같이 새로운 것만 바라지 말고, 즉시 행하고, 쓰고, 누려라!

27. <휴거될 말씀>은 다 줬다. <휴거 조건>은 다 세워 줬다. 이제 네가 따라와라. 네가 행해라. 그것만 남았다.

28. 지금은 시대 말씀을 행하고 성자를 사랑하면 휴거되는 때다.

29. 이제는 결혼하여 같이 살듯이, 성자와 구원자와 같이 살 때다.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두고, 매일 작고 큰 기회를 맞는다.
2. 매일 작고 큰 기회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앞날에 기다리는 희망의 큰 기회를 잡아라.
3. '기회'에 깨어 있어라.
4. '기회'에 대해 배우고 행하여 전문가가 될수록, 기회가 왔을 때 잘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아 쓰게 된다.
5.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주관권 안에서 기회가 무엇인지 연구해라.
6. <기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7. <기회>는 '희망하며 기다린 것을 놓고 해야 할 일'이다.
8. 때 놓치면 못 한다. <기회>는 '때'다.
9. 서두르고 재촉해야 기회를 잡는다.
10.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기치를 벌인 군인이 밤낮 적을 지키듯 지켜야 된다.
11. 기회를 놓치는 자들은 할 일을 두고서, 거기에 끝까지 집중을 안 하기에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 기회가 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치고 가도 모른다.
12. 기회를 배우고 공부하면 자기가 탈 차나 비행기 시간을 알듯이 알고, 생활화되어 행한다.
13. 기회는 그 생김새와 모양이 다양하다.
14. 기회는 '상대성'으로 온다. 자기가 돈 벌기를 소망하고 바라면 돈을 벌 기회가 오고, 자기가 사랑을 원하면 사랑의 기회가 온다.
15. 어느 때는 기회가 멀리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떠날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걸어가는 데서부터 내가 걷는 대로 기회가 오기 시작했다.
16. 기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멀리 있는 것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있다.
17. 어떤 기회는 차를 기다리다가 차가 와서 그 차를 타듯 앉아서 기다리다 맞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찾아다녀서 조상들이 밭에 묻어 둔 보화처럼 찾아 맞기도 한다.
18. 자기 기회라고 생각되면, 평소 자기 생각대로 부정하기만 하지 말고, 접해 보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
19. 무지하면, 기회가 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모른다.
20.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기다린 기회를 알고 맞는다.
21. 저마다 기다린 기회는 자기 생각대로 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모양, 형상, 방향'이 다르게 오기

도 한다.

22. '자기가 기다린 시대'가 다르고 '기회가 오는 시대'가 다르다. 고로 기회는 그 시대에 해당되게 온다.

23. 바라고 기다린 기회가 왔어도 '안일함, 게으름, 자기중심의 사고'로 인해 기회를 애인 맞듯 맞지 못한다.

24. 기회는 빛같이 빠르다. 정신은 빛보다 더 빠르다. 그러니 빛보다 더 더 빠른 정신과 생각으로 기회를 잡는 것이다.

25. 기회를 잡았으면, 생각으로 끝내지 말아라. 잡았으니 행해라. 기회를 잡고도 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면, 관념으로 끝나 무(無)로 사라진다. 행하여 유(有)를 만들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행할 때 아예 행해야 된다.

26. 기다린 기회는 자기가 뛰어들어 행해야, 자기가 기다린 기회인지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27. 기회는 기다리는 자의 마음을 노크한다. 고로 마음이 잠자면 모른다.

28. 무기력한 마음·정신·생각으로는 기회를 다 놓친다.

29. 눈도 마음도 '기회'에 집중하지 않으면, 기회는 왔다가 점점 사라져 간다.

30. 기회가 자기 목적이면, 시간과 힘과 돈을 모두 투자하여 잡아야 된다.

31. '기회'는 마치 밤중에 적에게 쫓기는 애인이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노크하듯 한다. 순간 문을 빨리 따 주어 방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적에게 잡혀간다.

<2013년 12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32. 기회는 '시간과 함께' 왔다 간다.

33. 기회를 마음에 두고 항상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번뜩 잡아 행동해야 된다.

34. 기회는 기회를 잡은 자를 좋아하며 그와 함께 행한다.

35. 기회를 놓친 자들은 다 몰라서 놓친 것이고, 마음·정신·생각이 잠자다가 놓친 것이고, 다른 것에 한눈팔다가 놓친 것이다.

36. <기회의 때>에는 모두에게 기회가 온다. 그때 기회를 잡고 행해야 된다.

37. <기회의 때>에는 기회가 산같이 많이 온다. 그래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서 쌓아야 된다.

38. 기회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온다.

39. '역사의 기회'는 수천 년 만에 온다. 고로 그때 못 잡으면, 평생 영원히 못 잡고 끝나기도 한다.

40. 기회가 지나간 후에는 환난의 비바람과 고통의 눈보라가 온다.

41. '성자'는 지구 세상 모든 신앙인들에게 기회다.

42. 신령한 자가 영적으로 오는 기회를 잡는다.

43. 어떤 것은 육적으로 기다린 기회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기다리며 희망한 기회가 육적으로 이루어지고 끝난다.
44. <성자 재림의 기회>는 ‘딱 두 번’ 있다. 한 번은 성자가 육신 사명자를 쓰고 오셨을 때이고, 또 한 번은 성자 본체 영이 재림하여 행하실 때다.
45. <인간 휴거의 기회>도 ‘두 번’ 있다. 한 번은 육신이 땅에서 휴거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영이 하늘로 휴거되는 것이다.
46. 가뭄 속에 비 없는 먹장구름이 머리 위에 꾸물거리기만 하니, 농부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기대가 어긋나게 된다. 이와 같이 기회를 못 맞는 자들은 꾸물거리기만 하다가 성자의 재림을 못 맞고 성자의 기대만 어긋나게 한다.
47. 신앙의 잠을 자는 자는 다시 오신 성자를 맞지 못하고, 신앙의 선잠을 자는 자는 성자가 재림하여 오고 가신 후에 알고 탄식한다.
48. 기회를 맞으면, 그 기회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싸워 이긴다. 기회는 ‘성자’이며, ‘자기 희망을 이루는 것들’이다.
49. <영광>은 ‘찬란하게’ 오지만, <기회>는 ‘은밀하게’ 온다.
50. <기회>는 비바람과 눈보라가 칠 때도,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때가 되면’ 온다.
51. 고통 중에 기회가 “때가 되어 왔다.” 하며 노크한다. 그때 안 하고 말면, 큰일 난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다.
52. 기회가 앞에서 옆에서 풍악을 울리고 기적을 울릴 때 안 맞고, 떠난 후에 뒷모습을 보고서 그제야 시인하면서 탄식하고 뛰어간다.
53. 기회는 치타같이 빠르게 뛰어가 잡아야 된다.
54. 기회가 오기를 그렇게도 희망하며 청춘이 늙도록 기다렸던 자들이 막상 기회가 오면 허송세월한다.
55. 수십 년 동안 기다렸던 기회도 어느 때는 번뜩 지나간다.
56. 정신과 행동이 살아 있는 자만 기회를 잡아 성공한다.
57. 어느 때 자기 기회의 때인 줄도 모르고 기회를 맞고 행하다가, 알고 그제야 기회를 사랑한다.
58. 처음에 기회가 작게 나타났다. 그래도 쫓고 행했다. 그랬더니 기회가 점점 커져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되었다.
59. 성자는 ‘하늘의 기회’를 보낸 자에게 숨겨 놓고, 사람들이 그 기회를 찾게 하셨다.
60. 기회는 사람의 인격·마음·행위 등 모든 것을 다 보고, 마음에 들면 그 마음 문을 두드린다.
61. 기회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회를 기다린 모든 자들과 성자를 위한 것도 많다.
62. 기회는 한 번 가면, 금방 다시 못 온다. 다시 만들어서 키워서 와야 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고로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잡는 것이 지혜다.

63. 기회를 놓치면 ‘작은 미꾸라지’가 되고, 기회를 잡으면 ‘큰 용’이 된다.

<2013년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64. <성자>는 ‘기회가 되어 오시는 신랑’이며, <우리>는 ‘기회를 맞는 신부’다.

65. ‘성자’라는 기회는 땅의 구원자를 통해 나타나, 구원자를 맞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66. 성자는 “나 기회가 도적같이 갈 테니, 깨어 있어 맞아라.” 하셨다.

67. 사탄은 기회를 막는다. 고로 사탄은 들판의 익은 곡식에 날아드는 새를 쫓듯이 늘 쫓아야 된다.

68. ‘사랑’으로 기회가 온다. 기회가 누구냐? 다시 오신 성자다. ‘사랑’으로 맞아야 성자를 맞는다.

69. 기회를 맞는 자에게 기회가 잘못하면, 그 기회는 제 발로 못 온다. 맞을 자가 쫓아가서 끌고 와야 된다.

70. 인간은 원해도 모르니, 성자에게 구해라. 그러면 성자의 생각이 너에게 가서 신이 되어 알게 된다.

71. 기회는 전화벨과 같다. 울릴 때 안 받으면 끝난다.

72. 성자가 오셨다가, 이제는 가면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걷고 있다. 쉬고 있다. 놀고 있다.

73. <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긴 시간’이라도 <차가 와서 타는 시간>은 ‘순간’이다. <성자를 기다리는 시간>은 ‘2000년’으로 한 역사가 흘러갔지만, <성자가 와서 그를 맞는 시간>은 ‘순간’이다.

74. ‘평생’ 휴거되기를 기다려도, 휴거는 ‘어느 날 홀연히 순간’이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 준비해야 홀연히 휴거된다.

75. 자기 주관, 자기중심으로 이유를 대다가 순간 기회가 지나가 버린다.

76. ‘하늘의 기회’가 오면 성령도 감동을 주고, 성자도 말씀을 주고, 인도자를 보내신다. 그래도 못 하면 끝이다. 기회라는 배가 떠난 후에는 걸어서 바다를 지나가지 못한다.

77. 이 시대는 ‘역사적 대희망의 기회’를 원하고 기다렸다. 그러나 시대에 깨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맞고, 모두 기회를 놓쳤다.

78. ‘그 시대의 기회’는 ‘한 시대’다. 그때 못 맞는 자는 늙고 죽어 끝났다. 맞은 자만 맞고 뜻을 펴고, 그 뜻이 후손들에게 뻗어 간다.

79. ‘그 시대의 기회’는 하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80. ‘역사의 기회’는 지나간 후에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후에는 전해 내려오는 말을 듣고, 겨우 확인하고 알게 된다.

81. 한국에 기독교가 최고로 떠들썩할 때가 있었다. 그때 <육적 복음 역사>와 <육적 휴거 역사>를 폈다. 그때 <성자의 재림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자기 육으로 적그리스도들을 두고, 수십 군데에서 방해하며 행했다. 성자는 사명자와 함께 모두 심판하여 없앴다.

82.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미 역사가 지나갔기에 모른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 역사를 맞은 자들이 말해 줘야 알게 된다.

다.

83. <성약 1000년 역사 구원 열차>는 '시대의 역'마다 기다리는 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태우고 간다. 당세에는 구원 열차가 비어 있어도, 가면서 1000년 동안 태우니 대역사를 이룬다. 지구 세상 구원 열차다.

84. 기회를 놓치면, 허허벌판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고통받고, 유혹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고통받는다.

85. 시대를 맞지 못한 자들이 섭리역사를 부인하는 이유가 있다. 자기가 섭리역사를 불신했거나 혹은 몰라서 못 맞았으니, 만일 섭리역사가 정말 <성자의 재림 역사>라면 자기들은 실패자가 되어 괴로우니 불신해 버리고 지나간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 겨울이 왔는데도 고집을 부리며, 추위에 떨면서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꼴이다.

86.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보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어도 항상 진실로 깨어 있는 소수의 무리들만 맞았다.

87. 때를 놓치고 가슴에 희망이 불타서 기다려도, 순간 심리 자체적인 위로뿐이다. 끝난 것은 허무하게 끝난 것이다.

88. 기회를 놓친 자는 뛰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만 뛰면서 산다.

89. 기회를 맞은 자는 '날마다 변화'이며, '이상세계의 불타는 희망'을 이루며 먹고 마시면서 산다.

90.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중심이 아니다.

91. 불신자, 악평자, 부정자는 어차피 불신과 악평과 부정으로 끝난다. 고로 이판사판으로 자기 성격대로 불신하고 악평한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받는 심판이 너무나 많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도 모자라다. 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니, 어찌할 수 없다.

92. 역사를 거울삼아 보자. 항상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선지자나 중심자나 구원자를 두고 '반대와 찬성'으로 갈렸다.

93. 고로 다 '구원'도 아니고, 다 '멸망'도 아니다.

94. 하늘이 보낸 자를 맞으면 '구원', 반대하면 '멸망'이다. 자기가 행한 대로다.

95.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선악 간에 대하는 것을 하나님과 성자를 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하신다.

96.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악인'으로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선인'으로 만든다.

97.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자기 영을 살릴 기회'다.

98. 자기 영을 휴거시켜야, 그 육도 지구 세상에서 살 때에 최고 보람 있다.

99. 악평자들과 유혹자들의 말은 불신하고, 아예 네 마음에 담지 말아라. 이는 사탄이다.

100. 세상 독재자들을 보아라. 앞날에 창창하게 살 줄 알았다. 그렇게 일순간 죽을 줄 알았겠느냐.

101. 시대 재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102. 왜 올해를 <말씀과 전도의 해>로 하여 해 줄 말씀을 다 해 주고 전도하라 한 줄 아느냐. 지금 이때를 보고 깨달아라.

103. 소경은 보고 있어도 모른다. 깨어 있지 않는 자는 시간을 쓰고 있으면서도 몇 시인지 모른다.

104. '기도'함으로 신령해야, '하늘의 뜻'이 가는 것이 보인다. 보고 행하는 것과, 못 보고 감각만으로 행하는 것은 다르다.

105. 순간의 기회를 놓치면, 온종일 뛰어야 한다.

106. 기회의 때에 원 없이,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실컷 해야 된다. 행한 것만 남아 있다. 행하지 않으면, 실체가 없다.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났을 때가 그 일의 기회다.

2.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때가 기회다.

3. 지난날을 생각해 봐라. 확인해 봐라. 힘들었지만, 고생도 했지만, 그때가 기회였기에 하지 않았느냐.

4. 가라지가 옆에서 솟아나 괴롭혀도 곡식은 그때가 크는 기회다. 섭리역사도 그러했다.

5. 환난과 핍박 때도 섭리역사가 진행되는 1000년 기간은 1시간도 빠짐없이 다 역사다. 지금도 섭리역사는 쉬지 않고 간다.

6. 환난 때, 역사가 가장 생명력 있게 펼쳐진다.

7. 어떤 사람은 환난이 끝나고 역사를 펴는 줄 안다. 환난 때라고 시간이 안 가느냐.

8. 환난 때도 자기 생명이 존재하듯이, 환난 때도 섭리역사는 생명같이 존재시켜야 된다.

9. 역사적으로 섭리역사가 독립을 맞았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역사는 때가 되어 맞은 <성약 독립 역사>다.

10. 어떤 미련한 사람은 선생이 나오면 그제야 역사를 펴는 줄 안다. 지금도 역사를 펴고 있고, 행한 대로 대해 주며 할 것을 다 하고 있다.

11. 선생이 여기 있다고, 그동안 성자가 말씀을 안 하셨냐. '말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구원역사를 펴 나가는 것이다.

12. 비밀 된 것은 숨겨 놓고 역사를 편다. 그래야 반대하는 자들이 모른다. 그래야 '지도자가 갇혀서 못 하겠구나.' 한다. (큰 잠언임.)

13. 자기가 밥 먹고, 일하고, 자기 삶의 구원을 이루면서 자기가 살아야 하듯이, 구원은 자기가 행해야 이루어진다.

14. '구원'은 죽을 자를 다시 살려 주어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때부터 자기가 구원을 위해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희생만 해 준 것이 된다.

15. '휴거'를 위해서도 조건을 세워 주었다. 그때부터 자기가 휴거를 위해 행하지 않으면, 그 조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16. <자기 구원 기간>은 '자기 육신이 살아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자기의 때와 하늘의 때가 있으니 '때'를 지켜 행해야 된다.

17. <자기 휴거 기간>은 ‘자기 육신이 살아 있는 기간 중에서 자기 때’가 있다. 그때 꼭 행해야 휴거된다.

18. 말로나 글로나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19. 말귀를 알아듣는 성장된 자들은 핵만 말해 줘도 알지만, 어린 자들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해 주고, 반복해서 말해 주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된다.

20. 내가 네게 행한 일들이 지금은 무엇인지 몰라도, 후에 가서는 불가능한 표적이었다는 것을 안다.

21. 사람이 순간 번뜩 생각한 것들을 자기 육으로 행하려면, 수만 배 시간이 걸린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번뜩 주신 말씀을 인간의 육으로 행하니, 그렇게도 한 역사가 걸린다.” 하셨다.

22.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장걸음으로 먼 길을 가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데리고 행하신다.

<2013년 12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 시간> 늦으면 약한 자에게도 당한다.

2. <기도 시간> 늦게 떠나면, 제시간에 먼저 떠난 어린아이에게도 당한다.

3. <기도 시간>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행해야 된다.

4. <기도> 신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마음으로 들린다.

5. 성자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 ‘심정 일체’ 되는 것이다. 심정 일체 되면 성자도 성령님도 너를 통해 말하니 네 육의 귀로 듣게 되고, 또 영으로 말씀하시니 영의 귀와 마음으로 듣게 된다.

6. 기도하지 않으면, 성자가 오셔도 일생 동안 줄 것을 안 준다. 무(無)로 지나간다.

7.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일생 동안 줄 것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신다.

8.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보고 느끼지만, 육계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 영계에서 보고 느끼는 차원이 다르다. 육과 혼과 영의 지능의 차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9. 세상에서 육이 성자와 사랑하며 산 자들만 영계에 가서도 그 영이 그 차원에서 성자와 사랑하며 산다. 나머지는 영계에 가서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산다.

10.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자기 영이 거할 영의 세계가 결정된다.

11.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육이 성자와 주를 어떻게 알고 대하고 행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변화되고 형성된다. 영이 변화된 대로 그 차원의 영계 지역으로 간다.

12. 영이 한 번 그 차원의 영계에 가면, 거기서 더 잘하여 높은 차원의 영계에 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13. 땅에서 육이 투자한 대로 영이 천국, 혹은 기타 다른 영계로 가게 된다.

14. 투자한 대로 아파트로, 개인 별장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결정되어 가듯이, 육이 땅에서 투자한 대로 영이 거할 지역이 결정된다.

15. <천국>이라고 다 차원이 같지 않다. 여러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최고 높은 <천국 황금성 세계>에는 갈 수 없다.

16.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의 영만 <천국 황금성>에 가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대했으니, 사랑으로 대한 차원대로 그 영을 <천국 황금성>에 데려간다.

18. 세상에서 사람끼리도 상대가 자기를 대하는 대로 자기도 상대를 그 선까지만 대해 준다.

19. 천국의 최고 높은 세계에 간 영들은 그 밑의 세계를 알고, 그곳에 갈 수도 있다. 차원이 높으니, 그 밑의 모든 세계도 다 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밑의 세계에 간 영들은 위의 세계의 존재를 모른다. 차원이 낮으니, 차원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갈 수도 없다.

20. 건물로 비유하면, 100층에 있는 사람은 99층까지 다 거쳐 왔기에 그 밑의 층을 다 안다. 그러나 1층에 있는 사람은 2층부터 위에 있는 모든 층들을 모른다. 천국도, 다른 영계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계의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21. 한 차원 높이는 것이 그리도 크고 엄청나다.

22. 월명동도 6차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까지 만들었다. 최고 차원으로 만드니, 그 밑의 차원의 것이 필요 없다. 최고 차원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를 다한다.

23. 월명동의 <성자바위>도 성자는 아예 최고 차원으로 주셨다.

24. 월명동은 한 단계씩 차원을 높이면서 개발했다. 예를 들어 식당과 건물을 보자. 식당도 처음에는 천막으로 해 났고, 건물도 가건물로 해 났다. 그러다가 3차원으로 식당과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니 이제 천막도 가건물도 필요 없게 되었다. 3차원의 건물 하나만 해도 만족하다. / 개인 신앙도 그러하다. 차원을 높이면 옛것이 필요 없고, 만족하고, 영원하다.

25. 월명동의 차원을 높인 것들을 보아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다르다.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들은 왜 마음·정신·생각이 변화무쌍할까?) 목적이 없어서 그러하다.

2. ‘목적’이 확실할 때, 마음·정신·생각이 확실하다.

3. ‘희망’이 뚜렷할 때, 정신도 맑고 뚜렷하다.

4. 동물도 사냥할 것에 목적을 뒀을 때, 정신이 또렷하다. 사람도 목적이 확실할 때, 정신이 또렷하다.

5. 동물은 그렇게 생긴 만큼 그 차원의 마음·정신·생각을 가졌다.

6. 사람은 그렇게 생긴 만큼 그 차원의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산다.

7. ‘혼’은 혼이 생긴 만큼 육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있다. 고로 ‘육의 생각’보다 확실하다.

8. ‘영’은 영이 생긴 만큼 최고 차원의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확실하게 산다.

9. 사람이 마음·정신·생각이 흐릿하면, 인생을 무미하게 살아간다.

10. 사람이 어떤 목적이 확실할 때, 마음·정신·생각도 확실하다.

11. ‘목적’에 따라 마음·정신·생각의 강도가 좌우된다.

12. 목적이 있어도 목적을 행하지 않으면, 마음·정신·생각이 흐릿하고 무미하고 무감각하다.

13. 목적 없이 살아가면 ‘왜 사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해진다.

14. 짐승은 하는 것이 없으니, 단순히 먹기 위해 살아간다.

15. 짐승들은 ‘자기가 사는 목적’을 모른다. 그저 재미있게 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키우는 주인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주인은 잡아먹기 위해 기른다.

16. 인간도 자기 목적을 두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적이 다르다.

17. 사람은 먹고, 즐기고, 사랑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목적을 두고 산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였기에 인간의 목적과 다르다. 인간이 창조자를 믿고, 그가 보낸 자도 믿고, 그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삼위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육도 영도 변화되어 ‘하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그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어 삼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간이 이 목적을 두고 살 때, 자기 머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와서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가게 된다. 고로 하나님도 돕고 역사하신다.

18. 육적인 마음·정신·생각은 약하다. 고로 육적인 마음·정신·생각으로 살면 ‘왜 사는가? 왜 먹는가?’ 하며, 인생 사는 마음과 생각도 흐릿하고 무미하고 무감각하다.

19. 영적으로 살아야만 인생 사는 마음과 생각도 확실하고 보람 있다.

20.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목적’이 없으면, 사는 보람이 없으시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찬란하여 그 마음과 생각도 찬란하게 비추며 살아가신다.

21. 사람이 목적 없이 먹고 마시며 살면,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흐릿하고 ‘왜 사는가?’ 하게 된다.

22. 확실한 목적을 주어라. 할 일을 주어라. 곧 ‘창조 목적인 휴거’의 목적을 주어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 할 일을 주고, 그 일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여라.

23. 재미있고 즐거운 일들을 줘야 된다.

24.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그것을 누리게 하고, 대가도 주고, 희망 있게 해 주어라. 그래야 마음·정신·생각이 뭉쳐져서 인생 사는 보람을 느낀다.

25.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영원하고도 새로운 목적을 이루려고, 새로운 세계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볼 때 약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이며 긴긴 역사를 해 오셨다. 왜? ‘창조 목적’을 이루어 지루함 없이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다. ‘영원한 목적’을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26. 하나님은 천사들과 천인들과 같이 사는 삶에 만족이 없었다. 사랑의 본체로서 사랑의 만족이 없었다. 천사들과 천인들은 천국에서 영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로 그들을 데리고서는 ‘사랑의 만족’이 없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 천국의 상대적 세계>인 ‘육의 세계, 곧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영의

신 하나님의 상대적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욕을 통해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을 ‘사랑의 상대체’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며 사랑의 세계를 누리려고, 대대적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27. 섭리역사를 펴면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남의 운동장을 쓰니 만족하지 못했다. 고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월명동’을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천사들로는 사랑의 만족이 없으셨다. 고로 상대체로부터 만족하게 사랑을 받고, 상대체를 만족하게 사랑해 주려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28. 희망의 목적을 두고 월명동 대(大)자연성전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섭리사 모든 자들의 육적인 희망의 날개가 없어 힘들었을 것이다.

29. <목적>을 두고 행해야 ‘마음·정신·생각’이 확실하게 활동하고, ‘몸’도 확실하게 활동한다.

30. <목적>이 있어야 ‘개인’도 마음·정신·생각이 뭉쳐지고, ‘섭리사’도 뭉쳐진다.

31. 새 희망의 목적을 자꾸 줘야 된다.

32. 머리가 좋아도 목적이 없으면 마음·정신·생각이 흐려진다.

33.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야 보람이 있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

34. 목적을 두고 더욱 행해야 더 좋은 목적이 보이고 생긴다.

35. <영적인 목적>을 두고 행해야 영원하고, 곤고함이 없고, 희망이 강하고 뜨겁다.

36. <육적인 목적>을 두고 살면, 바로 권태가 온다.

37.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욕과 영을 휴거시켜 자기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목적만은 꼭 이뤄야 된다. 그리고 ‘육신’이 세상에서 많은 공적의 일을 하여, 그 공적을 ‘영’이 다 받아서 천국에 가지고 가서 누려야 된다. 육의 공적은 영이 다 가지고 간다.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38. 목적이 얼마나 크냐, 목적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39. 어떤 존재물도 뛰어난 특징이 있어야 그 값이 다이아몬드 값처럼 뛰어나게 된다.

40. 수석도 어떤 형상이 뛰어나야 값도 높고, 신비함도 크다.

41. 어떤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라도 뛰어난 것이 있다면, 그 뛰어난 특징 한 가지가 전체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전체를 빛나게 한다.

42. 사람도 개성대로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한 가지로 인해 전체가 빛난다.

43. 천연 동굴도 특징이 있어야 신비하다 한다. 긴 것이 특징이든지, 넓은 것이 특징이든지, 작아도 수정과 종유석이 있는 것이 특징이든지, 동굴의 모양이 특이하든지 해야 귀하다 하고 작품이라 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44. 분재 나무도 작아도 특이하게 생기면 작품이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만들어라!

45. 존재물이 평범하면 가치가 없다. 특별할 때 귀한 작품이 된다.

46. 모든 존재물이 있지만, 실상 그 존재물에서 특별한 것은 한 가지다. 그 한 가지가 뛰어나게 눈에 띄어야 '걸작'이다. '대작'이다.
47.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만 갖춰도 작품이 된다.
48. 사람도 큰 사명을 받아야 웅장함을 갖춘 것이다. 영적으로 갖춰져야 신비함을 갖춘 것이다. 조화롭게 아름답게 행해야 아름다움을 갖춘 것이다.
49.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 강해야 행하여 '실체'를 남기고, '실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고로 마음을 보신다.
50. '몸'은 바로 늙는다. 5~10년이 가면 본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한다.
51. '마음'은 육신이 늙어도 늙지 않고 행하게 하여 실체와 실적을 남게 한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할 때 '마음'을 그리도 귀히 보고 택하신다.
52. '육신'이 예쁜 사람은 많아서 찾기 쉽다. 그러나 '마음·정신·생각'이 예쁜 사람은 아주 찾기 어렵다. 마치 황금 찾기 같이 어렵고, 특이한 형상석 찾기같이 어렵다.
53. 마음도 만들면 아주 가치 있는 자가 된다.
54. 흐리멍덩하고 우유부단한 마음은 총명하게 만들기 어렵다. 타고난 천성은 고치기도 어렵고,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다.
55.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여 천국까지 간다.
56. 천연 동굴도 타고나듯, 인생 마음도 타고난다.
57. 한국에 동굴이 수백 개 있다 한다. 그러나 그중의 몇 개만 특이함과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갖추고 있다. 나머지는 보통 동굴이다.
58. 월명동에는 수천 그루의 소나무들이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 크고 맛있는 소나무는 한두 그루다.
59.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 목적'을 정하시고, 매일 그 목적을 행하며 사신다. 고로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해같이 또렷하고 확실하게 사신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두고 기뻐하며 보람 있게 사신다.
60.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마음·정신·생각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흐릿해져서 '왜 사는가?' 하게 된다.
61. 사람은 각종 목적을 두고 살지만, 그것으로는 만족이 없다. 그러다가 임시로 살고 끝나게 된다. 사람의 목적은 하나의 존재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영원성이 없으니, 다 허무로 끝난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매일 그 목적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마음·정신·생각이 또렷하고, 영원한 사랑의 기쁨으로 살게 된다. 고로 '왜 사는가? 왜 먹는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나?' 하며 삶을 의미 없게 흐릿하게 살지 않는다. 그 목적은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니, 그만큼 희망에 차서 좋아하며 살게 된다.

<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목적>만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정>도 좋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목적>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과정을 희망 있게 보내며 행한다.

2. <목적>은 모든 뜻을 이룬 것이다. 그 단계에서는 완성하고 쓰고 사니 보람이다.

3. (화면을 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아래 논에서만 만족하고 살면, 평생 위에 있는 더 좋은 논에 못 올라간다. (그림 있음)

4. 사람이 자기 뇌 생각의 차원대로 그 단계에 처해 살면서 “더 아래 차원에 안 가서 다행이다.” 하며 만족하면서 산다. 실상 이 사람은 7단계까지 올라갈 복을 타고난 자다. 그러나 자기 위치에 만족하면 “그래도 여기까지 못 올라온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들보다 낫다.” 하며 만족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자다. / 신앙의 삶도, 인생의 삶도 그러하다. 한없는 도전이다! 이상세계를 향한 도전이다!

5. 종교도 그러하다.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와야 변화되고, 하나님이 시대에 주신 혜택을 받는다. 새 시대로 오지 않고 구시대에 머물면서 자체적으로 혀가 한 자나 빠지게 아무리 수고해도 구시대 주관권에서 조금 나아지는 신세다.

6.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안 오는 자들은 고욤나무, 돌감나무, 돌포도나무와 같다.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와 접붙여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아무리 발달해도 역시 돌감만 연다. 이와 같이 구시대 자체적인 발달은 아무리 해도 구시대 주관권이다.

7. 새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로 안 오고 구시대에 머무는 자같이 불쌍한 자도 없다.

8. 새 시대 사명자가 왔는데 구시대에 있는 자는 마치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이를 모르고 계속 식민으로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종같이 사는 자들과 같다.

9. 구약 4000년 동안은 ‘종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4000년 동안 ‘종 주관권’을 벗어나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삶으로 4000년 연대죄 형벌 기간을 선고했기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종 주관권’을 못 벗어났다. 4000년 형벌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종 주관권을 벗어나라.” 하셨다. ‘종 주관권’을 벗어나려면...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형벌 기간이 끝나야 했다. 둘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계속 아담으로 인한 ‘구약 연대죄 주관권’ 아래에 있는 것이었다. 4000년 형벌 기간도 끝났고 메시아도 왔으니, 예수님만 메시아로 믿고 따르면 ‘종 주관권’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무지하여 예수님을 안 믿었고, 계속 ‘종 주관권’에 머물렀다. 이 시대도 구시대가 새 시대 앞에 그러하다.

10. 신약 때 메시아를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펴면서, 동시에 형벌 기간을 보냈다. 그 기간이 끝나니, 성자가 다시 와서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신약 구시대 주관권에서 나오면 재림과 휴거의 은혜를 받고 신부의 몸이 된다. 그러나 안 오니, 신약 주관권에서 계속 구속을 받고 이 시대 구원의 혜택을 못 받는다. 신약 주관권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치며 발전을 이뤄도 그 주관권 안의 발전일 뿐이다. 성경을 보면, 새 시대가 시작되면 구시대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듯이 빛을 잃는다고 했다. 새 역사가 오면... 새 역사가 낮이 되고, 구역사는 밤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밤은 더 깊어 가서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잠을 자게 된다. 그 주관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원의 차원도 높이지 못한다. 이는 절대적이다. 구약에서 신약 차원의 구원을 얻었느냐? 못 얻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시대 신약 주관권에서는 성자의 새 역사인 재림과 휴거 역사와 이상세계는 못 얻는다. 이미 구시대를 다 겪고 왔다.

11. 개인도 절대 <옛 주관권>에서 보다 높은 차원의 <새 주관권>으로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계속 옛 주관권 삶을 살아야 된다.

12. 사람의 소원은 계속 차원을 높이며 사는 삶이다.

13. 자기 삶의 시대 차원에서 벗어나고, 낮은 데서 계속 나오기다. 이는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 희망의 세계다.

14. <행복>은 차원을 높여야 온다.

15. 행복은 있다. 그러나 차원 높은 곳에 있다. 그러니 행복하려면 차원 높여 살아라.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마음·정신·생각이 흐리멍덩하고 삶이 무미한 것은 <목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음·정신·생각’도 확실하지 못하고, ‘삶’도 확실하게 살지 못한다.

3. <목적>이 확실해야 ‘마음·정신·생각’도 확실하여, ‘삶’도 확실하다.

4. 동물도 사냥을 하려는 목적이나 살려는 목적이 없으면, 정신이 흐려져 잠이나 자고 누워서 뒹굴거나 한다.

5. 동물도 사냥을 하거나 사냥을 당할 때, 각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행동이 살아난다.

6. 사람도 <목적>이 없으면, ‘마음·정신·생각’이 땅바닥에 붙어 흐리멍덩하게 산다.

7. 사람은 각자의 차원대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 ‘마음·정신·생각’과 ‘행동’이 뛰어 다니고 하늘로 날아다닌다.

8. <자기 삶의 목적>을 만들어라.

9. 육적인 자는 육적인 목적을 만들고, 영적인 자는 영적인 목적을 만들어 행한다.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따라 행해라. 삶의 영원한 희망이 있다!

10. 목적 없는 삶은 무미한 삶이다. 곤고한 삶이다.

11. <목적>을 해같이 뚜렷하게 해라. 그러면 ‘마음·정신·생각’도 해같이 뚜렷하고 찬란하게 된다.

12. <육적 목적>과 <영적 목적>을 향해서 행하되, ‘영’을 중심으로 두고 행해라. 그래야 육이 행한 것으로 영이 영원히 얻고 누리다.

13. <해같이 찬란하고, 영원한 목적>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

14. 과학적으로 볼 때 우주 만물의 존재 역사는 약 137억 년이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 목적>은 인간이 메시아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여 육의 삶을 통해 혼과 영을 변화시켜, 그 혼과 영이 일체 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창조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이 <목적>을 해같이 뚜렷하게 하고 살 때, 그 ‘마음·정신·생각’도 해같이 뚜렷하고, ‘삶’도 해같이 찬란하게 빛난다.

15. 이 시대에는 성자가 재림하여 그 분체를 통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휴거’를 이룬다. 그로 인해 ‘창조 목적’을 이룬다. 그 영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천국 신부성>에 들어가게 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태양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누구든지 그 <목적>대로 행하며 살아야 그 ‘마음·정신·생각’도 빛나고, ‘행동’도 빛나고, ‘삶’도 빛나고, 그로 인해 얻고 누리게 된다.

17.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배우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마음·정신·생각’과 ‘삶’도 무미하다. 이는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죽은 연고다.

18.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을 알고 행할 때, 그 ‘마음’도 ‘행동’도 ‘삶’도 삼위일체같이 빛나고, 광명한 천국의 빛같이 빛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낸 자와 같이 날마다 목적을 행하며 이루신다. 너희도 그 목적을 향해 매일 행하여라.
20. ‘마음·정신·생각’도, ‘행동’도 <목적>에 빠져야 뜨겁다.
21. 목적에 빠져서 행하면, 다른 것이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난다.
22. ‘빠졌다’ 함은 ‘들어갔다’ 함이다. ‘목적과 일체 되었다’ 함이다.
23. <휴거>에도 빠져야 ‘휴거 길’이 보이고, ‘목적’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인다.
24. 자기가 할 일과 목적에 빠지지 않은 자는 인생 삶을 곁돌면서 사는 자요, 방황하는 자요,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버리는 자다.
25. 인생은 ‘몸’을 가지고, ‘생각’으로 살아간다.
26. <육적인 목적>은 행해도 허무하고, 이뤄도 허무하다.
27. <영원한 목적>이 최우선이다.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28. 돼지, 닭, 양 등 가축들은 주인이 자기를 기르는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다. 돼지의 목적과 주인의 목적은 다르다. 돼지는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그러나 주인은 “정한 날에 잡아먹으려고 기른다.” 한다.
29. 돼지 스스로 정한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주인은 정한 날에 돼지우리의 문을 열면서 “나와라. 살이 많이 찼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하며, 아들 혼인 잔치 때 진수성찬으로 만들어 먹는다.
30.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목적도 다르다. 인간 프로그램은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일 뿐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계획대로 감행하신다.
31. 오직 창조주의 목적대로 산 것만 남아지고, 나머지는 자기 행위대로 대가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
32. 사람들은 거의 먹고 즐기는 것, 사랑, 향락, 명예, 물질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 주관권 안의 삶을 살면서 ‘영’을 위해 살아 구원받는 삶을 원하신다.
33. 육신을 위한 삶은 육신이 쇠약해지면서, 모두 같이 쇠약해진다.
34. 주인은 돼지, 소, 닭을 주인의 기쁨을 위해 기르고, 자녀의 혼인 잔치를 위해 기른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기르신다. 고로 하늘 혼인 잔치인 ‘휴거’를 위해 돕고 사랑하며 키우신다. 인생들이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위해 살면, 그로 인해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게 된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구 수백 개보다 더 큰 <황금성 천국>을 창조해 놓고, 모두 구원받고 휴거되어 그곳에 오라고 매일 도와주며 분체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신다.
36. 인간은 각자 100년밖에 못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니,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37. 천국에는 <황금성 천국>이 있고, 그 안에 휴거되어 그곳에 거할 자들의 ‘집’이 지어진다. <황금성 천국 안의 집>은 인간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저마다 구원자를 통해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그 공적과 사랑의 차원대로 지어진다.

38.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자기 영이 천국에 거할 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100%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 안에다 자기 영이 거할 집을 자기 욕의 행위로 만드는 것이다. 성자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각자의 행위와 공적대로 예비하신다.

39. <목적>이 뚜렷하면, ‘생각’도 뚜렷해지고 ‘행동’도 뚜렷해진다.

40. 구름도 뭉쳐야 덩어리가 보인다. 사람의 ‘마음·정신·생각’도 뭉쳐야 형태가 또렷이 형성된다. 그래야 ‘혼의 형체’도 확실해지고, ‘삶의 목적’도 확실해져 확실히 행하게 된다.

41. 전도도 그러하다. 개인, 교회, 섭리사가 몇 명을 전도할지 확실히 목적을 정하고 행해야, 목적이 있으니 이루게 된다.

42. <목적>을 안 주면,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보이지 않으니 행하지 못한다.

43. 생각은 관념이다. 행해야 ‘실체’를 낳는다.

44. 욕의 몸과 눈으로 못 찾으면, 차원 높여 혼으로 찾아라.

45. 욕으로 생각하여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네 혼이 있으니 ‘혼’을 가지고 욕과 같이 행해라. 욕이 혼에게 시켰는데 혼으로도 안 되면, 네 ‘영’에게 시켜라. 그러면 욕으로 안 될 것이 된다.

46. <휴거>도 욕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혼’과 함께하고 ‘영’과 함께하면, 성자도 분체도 휴거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된다!

47. 욕이 가만히 있으면, 혼과 영이 변화되지 않는다.

48. 욕이 좋게 행하는 대로 혼과 영이 좋게 변화된다.

49. <목적>을 두고, 자기 욕을 만들어 변화시켜라. 그로 인해 혼과 영을 만들어 변화시키기다.

50. 영원한 목적을 두고 기필코 목적한 것을 행하여라! 그것이 황금을 얻는 일이다. 왜 노느냐? 왜 못한다고 하며 조금 하다 마느냐?

51.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루는 것인데, 못 하고 말 것이냐? 못 하면 네 욕과 혼과 영이 끝없이 흑암으로 내려간다. 거기에 빠져 혼자 살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행하여라!

52.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나 몰라서 <지옥, 무저갱, 음부의 삶의 길>로 매일 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53. 매일 주와 일체 되어 <천국의 삶의 길>로 살아라.

54. ‘휴거의 가치’를 알아라. 지구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것을 받지 말고, 휴거돼야 한다. 그만큼 가치를 알아야 휴거된다. 휴거되면, 지구보다 수백만 배 더 좋은 <천국 황금성>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나 지구는 받아도 인생 100년 밖에

못 사니, 100년도 못 누리고 죽는다. 그리고 그 영은 지옥에 간다. 그러니 ‘지구’보다 ‘휴거’가 더 귀하다. 계산을 잘해라.

55. 휴거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사랑이다. 그리고 황금 신부성이다.

56. 태양 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은 자기를 녹이고, 성자도 녹이고, 모든 사람들을 녹이는 뜨거운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해라.

57. 천국으로 가려면, ‘사랑’을 써라. 지옥이나 세상으로 가는 데 네 사랑을 쓰다가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2013년 12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몸>도 가만히 놔두면 기능이 약해지고 굳듯이, <뇌>도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굳는다.

2.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3. 사람은 ‘뇌’로 살아간다.

4. 사람은 ‘몸’으로 살아간다.

5. 환경이 뭐 그리 중요하냐.

6. <몸> 가지고 숨 쉬고, 먹고, 입고, 생각하고, 수만 가지를 행하며 살아간다.

7. <몸>은 늘 가지고 다니며 산다. <환경>은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8. <환경>은 사람이 사는 데 ‘도구’에 불과하다.

9. <몸>은 없으면, 1초도 살지 못한다. 고로 사람은 ‘몸’으로 산다.

10. <환경>을 천국처럼 만들어 놔도 <몸>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여 천국처럼 못 살면, 천국 같은 환경도 무가치하다.

11. <환경>은 보잘 것 없어도 <몸>을 가지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큰일을 하면서 살면, 그 삶은 크고 위대하다. 금 같은 삶이다.

12. <몸>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느냐가 문제다. 육을 위해 잠깐 사는 일을 하느냐, 영을 위해 영원히 사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잠깐의 가치’, 혹은 ‘영원한 가치’로 좌우된다.

13. 몸으로 사니, 몸 관리다.

14. 모르면, 자기가 고통을 만들어 자기를 고통 받게 한다.

15. 지옥도 자기가 자기를 가게 한 것이다.

16. 자기 몸인데, 왜 100% 못 하느냐.

17. 남과 같이 하면 마음이 안 맞아서 100% 못 한다. 그러나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100% 못 하느냐.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고, 안 배웠기 때문이며, 배웠어도 귀히 여기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18.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자기를 고통 받게 하는 것이다.
19.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서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해서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한다.
20. 메시아는 천국에 가는 길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인생들을 천국길로 인도하여 천국에 가게 한다.
21. 인생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고 지옥에 가는 삶을 사는데, 천국 길을 가르쳐 주어 천국에 가게 하니 그 얼마나 큰일이냐. 고로 ‘구세주다’ 하는 것이다.
22. 가르쳐 주되, ‘실천’은 자기 몸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몸으로 자기가 사니, 매일 자기 몸으로 자기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23. 인간은 자기가 잘하는 데까지만 잘된다. 잘못 하면 바로 잘못 된다.
24. 생명을 낳아 놔도 관리자가 없으면 바로 죽는다.
25. 생명을 낳은 자가 관리하고, 그것으로 안 되면 옆의 사람이 자기가 낳은 듯 관리해 줘라.

<2013년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가 무엇을 물었을 때 맞으면 응답하시듯, 우리가 행했을 때 맞으면 역사하신다.
2. 늦게 발견하면, 못 사용한다.
3. 늦게 발견하면 쓰지 못하니, 보람도 유익도 없다.
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늦게 찾으면, 보람을 얻지 못하신다.
5. 성자도 늦게 사랑하면, 해 그날에 보물섬을 만난 것과 같아서 얻고 누릴 날이 없다.
6. 생명의 주를 일찍 만나고 찾아야 된다.
7. 보물도 일찍 찾아야 오랫동안 쓴다.
8. 찾을 때까지 놀지 말고, 부지런히 찾아라.
9. 늦게 개발하면, 많이 쓸 날이 없다.
10. 부지런히 열심히 찾고, 개발하고, 써라.
11. 진리를 빨리 찾아라. 늦게 찾으면, 행하여 얻고 누릴 날이 없다.
12. 월명동 양합판 길 아래와 위에 누렇게 황금이 묻혀 있었어도 아무도 모르고 굶주리며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금 300관을 캐는데도 남은 것도 없고, 해 놓은 것도 없고, 굶주리고 살았다. 선생은 그때 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소 얼마마리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을 캐면, 우리 식구들 다 먹고 살 수 있는데요.” 하고 이야기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꿈을 꾸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금을 캐 때 그런 꿈을 꿔다. 오늘 내가 밥을 싸 줄 테니, 가서 파 봐라.” 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랫집 승달이와 작은형과 같이 양합판에 가서 금을 발견했다. ‘이것이 금인가?’ 하고, 금이 박힌 돌덩이 하나를 가지고 오후 2시쯤 집에 왔다. 아버지에게 보여 주니, 아버지는 놀랐다. “쌀을 조금 팔아 먹을 정도는 된다.” 했다. 그리고 즉시 가서 확인하고, 바로 광주(鑛主)에게 신고하고, 같이 금을

파게 되었다. 양합판 길 밑에도 황금이 누렇게 있었는데, 거기만 파느라 정신이 없었다. 양합판 길 밑의 황금은 다른 사람이 캐 갔다. 거기서는 더 많은 금이 나왔다. 양합판 건너편은 동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캐 갔다.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만 캐다. 황금만 보화가 아니다. <진리>가 보화다. <메시아>가 보화다. <성자>가 보화다. <하나님>이 보화다. <성령님>이 보화다. <예수님>이 보화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발견했는데, 그 옆에 계신 성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는 자에게 보화다.

13. 황금만 보화가 아니다. 나무도, 돌도, 땅도, 작품도 황금 보화다.

14. ‘두뇌의 차원’을 높이고 ‘지혜의 차원’을 높이면, 시대적으로 보는 보화를 찾게 된다.

15. 양합판에 나무를 하러 다닐 때, 거기에 있는 굴이 시원하니 여름에 그곳에서 쉬다가 나왔다. 그때 천장에 황금이 누렇게 붙어 있었는데 ‘설마 여기에 금이 있을까?’ 하고, 건성으로만 보고 살았다. 천장에 많은 금이 있었는데 몰랐다. 그러면서 굶주리며 살았다. 모르고 산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아는 사람들만 ‘굴 위에서 금이 나오니 여기에서도 나겠구나.’ 하고 캐 갔다.

16. 아는 자들만 황금을 캐고 좋아한다. ‘진리의 황금’도 그러하다. 그러나 말하면 악평하고 미워하니, 황금을 캐고서도 그들에게는 말을 안 한다. 고로 그들은 더욱 모른다. ‘영원한 영적 황금’이 있고, ‘육적 황금’이 있다.

17. 처음에 월명동 사람들이 양합판에서 금을 캔다고 하니, 큰 동네 사람들은 “미쳤어. 어디에 금이 있어?” 했다. 그러나 같이 와서 금을 캐며 수고한 사람들은 은도, 금도 캐냈다.

18. 월명동에 하나님의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 마치 황금을 캐듯 하니, 전 세계에서 군중들이 몰려온다. 월명동에서 황금 100관을 캐다고 해서 세계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겠느냐. 월명동에 황금이 있다고 해서 그같이 만들었겠느냐. 사람들은 두뇌 차원이 낮아서 모른다.

19. 하나님의 영원한 황금 나라 <천국>에는 지구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황금이 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황금이다. 이 황금을 발견하고 일체 되어라. 지구에서 황금 10000관을 혼자 캔 것보다 크다.

20. 황금만 귀한 것이 아니다. 황금 1관보다 도시의 땅 몇백 평이 더 낫다.

21. 황금 덩이보다 도시의 건물 한 덩이가 더 크다.

22. 사람들은 ‘황금과 돈이 좋다.’ 하는 것으로 뇌가 중독되어, 그것 외에는 귀한 것을 모른다.

23. 돈을 1m 쌓아 놓은 것만 크게 본다. 그것보다 도시의 집 한 채가 훨씬 더 크다.

24. 흙도, 돌도, 물도, 나무도, 땅도 보화다. 그것을 사려면 많은 황금과 돈을 줘야 된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황금 덩이다. <메시아>가 황금 덩이다. <영생의 말씀>이 황금 덩이다. 돈이다!

26. <인생>이 황금이다. 돈이다. 자기를 귀히 만들수록 더 큰 황금 덩이가 되고, 더 큰돈이 된다.

27.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천국’이다.

28.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금’이다.

29.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보화’다.

30.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주’다.

31. (성령님) 아는 사람에게 ‘성령’이다.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32. (성령님을 보여 달라고 성령님께 말하고 기도하니,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는 육체를 보고, 혼체는 혼체를 보고, 영체는 영체를 본다.

33. 육체는 육체를 보지만, 혼체는 혼체의 혼체를 보고, 영체는 영체의 영체를 본다.

34.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성령 본체’를 보여 달라고 하니, 성령님은 “네 육체는 ‘성령의 상징체’를 보고, 네 혼체는 ‘성령의 혼체’를 보고, 너의 영은 ‘성령 본체’를 본다.” 하셨습니다.

35. ‘성령님의 혼체’도 여러 가지 급으로 보여 준다. 성령의 혼체가 나타나도 순수하게 보이기도 하고, 빛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수백 가지로 보인다.

36. 혼체로 ‘성령’을 봐 바라.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규정하고 단정할 수 없다. 각종 처지와 입장에 따라 그 형상을 달리 나타내신다.

37. 설령 ‘성령 본체’를 보여 주더라도 한 여자로 보여 주든지, 여러 가지 형상으로 얼마든지 나타나신다. 고로 ‘성령 본체’를 봐도 알 수가 없다. ‘성령의 혼체’를 보여 줘도 수만 가지로 보여 주기에 봐도 구분을 못 한다. ‘성령 혼체’라도 제대로 보면, 빛나는 광명체로 보인다. 그 모습이 찬란하게 빛나니 눈으로는 안 보인다. 성령님은 자기 급수대로 보인다.

3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어떤 뜻을 깨닫게 하고 교육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고로 <상징>으로 보여 준다는 것을 깨달아라.

39. 성부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뜻>이었다면, 본체를 숨기지 않고 보여 주셨을 것이다.

40. ‘삼위일체의 형상을 사람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합당한 뜻>이 아니다. ‘그 뜻을 깨우쳐 주는 것’이 <목적>이며 <뜻>이다. 고로 삼위일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상징>으로 나타나 계시하신다.

4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목적인 바를 전해 주고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크다.

42. 가령 사람이 죽기 직전에 ‘안 죽게 계시해 주는 것’이 중하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하냐. 이같이 구원받을 인생들에게는 ‘구원의 과정, 휴거의 과정’이 중하고, ‘구원과 휴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삼위의 입장에서 볼 때 귀하다. 고로 삼위일체는 그 모습을 <본체>나 <상징체>를 통해 보이며 행하시고, 어느 때는 <본체>도 보통 사람으로 보여 주며 나타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본체>를 봤어도 “이렇다. 저렇다.” 꼭 규정해서 말하지 못한다. <삼위일체의 본체>도 그러하다. 수만 가지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43. 성령님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 주세요.” 하며 간구하니, 성령님은 “열 번, 스무 번, 백 번을 가도 모르니, 자주 가고 싶겠느냐.” 하셨습니다.

44. 성령님 보기를 원하고 대화하고자 해야 <상징>으로 보여 주시며 그 목적을 행하신다.

45. 성령님은 ‘어머니’로도 나타나시고, 혹은 여러 ‘여자’를 보이며 상징으로 나타나시고, ‘독수리’로도 나타나시고, ‘빛’으로도 나타나시는 등 수백 가지로 나타나신다.

46. 세상의 예쁜 여자는 어린아이가 예쁜 것같이 예쁘지만, 성령님은 ‘미의 여신, 신부의 신의 형제’로 다 성장한 여자가 예쁜 것같이 아름답고 신비한 이미지를 풍긴다.

47. 세상의 미인들은 7~8세 소녀가 예쁜 것처럼 예쁘고, 성령님은 25~30세 여성이 예쁜 것처럼 아름다움과 신비함으로 빛이 난다.

48. 사람의 영은 다 커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가면, 어린아이의 이미지가 완연하게 보인다.

49. 성령님은 <상징>으로 나타나시는데, 키 2.5미터~3미터로 보이고, 옷은 흰색인데 약간 분홍색이나 푸른색이나 옥색이 도는 흰색으로, 긴 드레스를 입고 계신다.

50. 성령님을 <상징>으로 보여 주실 때, 항상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며 ‘여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51.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선생을 만났는데, 청중 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다. 말씀이 끝나고 달려가서 껴안으니 같이 껴안아 주고 “이제 가자.” 하여 쳐다보니, 예쁜 여자로 보였다고 했다. 이는 성령님을 <상징>으로 보여 준 것이다. ‘성령 엄마같이 돕고 함께한다.’라는 뜻도 있고, ‘성자의 신부’임을 보여 준 것이기도 하다.

52. 혼으로 받을 때는 말이나 편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깊고 오묘한 것을 보여 주신다.

53. 꿈에 혼을 통해 안 보여도... 기도할 때 ‘깨달음과 생각’으로 축복을 주며 깨우쳐 주신다.

5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휴거 100선부터 전심으로 기도하면, <상징>으로 잘 볼 수 있다. 휴거 200선을 넘어가면, 혼적 단계에 들어가게 됨으로 더 잘 보게 된다. 휴거 300선을 넘어가면, 영적 단계까지 차원을 높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상징>으로 더 잘 보게 된다. 영계도 자꾸 배워야 유능한 달인이 되어 더 잘 알게 된다.

55. 영에 속해서 살면, 휴거되지 못했어도 그 혼적 체질대로 잘 보는 자가 있다.

56.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면서, 늘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성자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육이 조건 세웠으니 그 이름으로 구하면... 보여 준다.

<2013년 12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모를 때는 인도해라.

2. 세상에 눈을 안 떴을 때 생명을 인도해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만들어 버려라.

3. 세상을 알면, 산에서 큰 땡을 잡아다 기르듯 어렵다.

4. 시장에 갔을 때 아예 어린아이에게 시장을 구경시키지 않고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오듯, 생명들도 세상 구경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데려와야 된다.

5. 산짐승이 커서 산을 돌아다니기 전에 새끼일 때 집에 데려다 길러야 집짐승이 돼서 산으로 가지 않는다.

6. 새가 날기 전에 새끼 때 가져다가 키워야 안 날아간다.

7. 흑암과 세상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옮겨야 된다.

8. 좋아해야 불가능한 것도 찾는다.

9. 작은 것은 저마다 자기가 조건을 세우는 대로 얻는다. 그러나 큰 것을 얻으려면, 조건을 세우더라도 '구원자가 준 조건'을 세워야 된다. 이는 '성자'가 구원자에게 세울 조건을 주기 때문이다.
10. 가령 자기가 조건을 세우면 '방 하나'를 만든다면, 성자가 허락하여 구원자가 준 조건을 세우면 '집 전체'를 얻게 된다.
11. 성자가 줘야, 조건을 세워도 큰 것을 얻는다.
12. 큰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성자와 구원자가 준 것이다. 자기가 100% 행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성자와 구원자가 준 것을 행했기에 받은 것이다.
13. 흔히 사람들은 자기가 100% 행해서 얻은 것으로만 생각한다. 영계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성자가 주셨기에 우리가 받았다.
15.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성자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안 도와줬어도, 우리가 얻은 것은 성자가 주셨기에 얻은 것이다. 성자가 '준 것'이 '함께한 것'이다.
16. 네가 100을 했느냐? 성자도 구원자도 허락했기에, 네가 100을 한 것에다 900을 더 줘서 1000을 얻은 것이다.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역사하신다. 그러니 내가 자꾸 연구하고 물어보고 배워야 성자가 답답해하지 않으신다.
2.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자꾸 파 보아라.
3. 육계의 것도, 영계의 것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자꾸 행해 보아라.
4. 행해야 궁금한 것이 풀린다.
5. 굴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 들어가 보아라. 들어갈수록 알게 되어 궁금한 것이 풀린다. 이와 같이 낙원도, 천국도, 기타 영의 세계도 저마다 기도하여 신령해져서 들어가 보아라. 그러면 궁금증이 풀린다.
6. 하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성자에 대해 궁금하면 자꾸 기도하고 찾고 물어봐라. 그리고 배워라. 그럼 알게 된다.
7. 궁금하면 연구해라. 배워라. 그럼 알게 된다.
8. 궁금하면 실천해라. 그럼 알게 된다.
9. 있는 것도 아기가 빨아야 나온다.
10. 가만히 있으면 있는 것도 못 얻는다.
11. 콩을 물랐을 때 팔을 콩으로 인식하면, 콩에 대해 제대로 알 때까지 팔을 콩으로 안다. 그 사람은 누가 콩 가지고 메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항상 팔을 가지고 메주를 만든다.
12. 물랐을 때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죽을 때까지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대 신으로 믿고 산다. 죽은 후

에 영으로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영혼은 우상 신과 악신에게로 간다.

13.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몰랐을 때는 선지자도 아니고 사명자도 아닌 일반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속고 산다. 평생 모르고 살면, 평생 그를 믿고 살다가 죽는다. 그 육이 죽으면, 그 영혼은 자기 육이 섬겼던 자가 간 흑암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

14. 사람은 제대로 알 때까지 자기가 배우고 아는 수준대로, 자기 지능대로, 자기 두뇌 차원대로 보고 뇌에 인식한다. 고로 '똑같은 한 사람'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본다.

15.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성자도 한 분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 수준과 자기 인식대로 생각하니, 수천만 가지로 본다. 자기 지능의 차원대로 생각하고 보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 때까지 평생 그렇게 본다.

16. 한 제자가 월명동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이 바위가 왕바위예요?” 하고 묻기에 “아니. 왕바위는 저 산에 있다.” 했다. 그 제자가 말하기를 “저는 10년 동안 이 바위를 왕바위로 알았어요. 저는 10년 전 고등학생 때 섭리사에 왔는데, 그때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 줘서 그동안 이 바위를 왕바위로 알았어요.” 했다. 무엇이든지 온전히 알 때까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인식대로, 자기 수준대로 뇌에 입력되어 그같이 보고 생각하게 된다.

<2013년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비교하면, 사람이고 물건이고 비교가 안 된다. '개성'으로 사용해야 된다.

2. 자전거는 아예 자동차와는 비교가 안 된다. '개성'으로 사용하면, 자전거는 소로 길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넓은 길로도 다닌다. 그러니 '개성'으로 사용하라.

3. 사람들도 서로 비교하고 쓰면, 개성으로 못 쓴다. 고로 큰 손해다. 젓가락과 숟가락도 특징이 다르니, 비교가 안 된다. 젓가락으로는 국을 못 떠먹으니, 숟가락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숟가락으로는 반찬을 못 집어 먹으니, 젓가락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개성'으로 써라.

4. 바늘과 철창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개성'으로 하면, 비교가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5. '개성으로 보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법이고, 공의다.

6. 사람의 각 지체도 서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 개성으로 보아라. 그러면 똑같이 각각 귀하고 아름답다.

7. (화면을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혼자 행하지 않으신다. 시침, 분침, 초침이 같이 시간을 나타내듯, 같이 행하신다. (<좌측>에 삼각형 그려 놓고, 삼각형이 꼭짓점에 점을 그려 넣는다. / 그리고 <우측>에 시계에 시침, 분침, 초침이 같이 움직이며 시간을 나타내는 모습)

8.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 사람을 끈으로 묶어 놓았는데, 한 사람이 혼자 딛 데로 가면 안 가진다. 또 둘만 딛 데로 가려 해도 안 가지고 셋이 같이 가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각 위로 존재하시지만 함께 행하신다. 마치 육군, 공군, 해군이 같이 움직이듯 하신다. (삼각 구도로 세 사람이 끈에 묶여 있는 모습 한 사람만 움직이려 해도 끈이 묶여 있으니 같이 움직여진다. 두 사람만 움직이려 해도 같이 움직여진다. / 육해공군이 같이 움직이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같이 운행하시는 모습)

9. <삼위일체 조직>으로 하면, 강하고 엄청난다.

10. 가정도 <삼위일체 조직>으로 '남편 아내 자녀'가 서로 일체 되어 한다면, 강하고 엄청난다.

11. 교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에 따라 <삼위일체 조직>으로 하면, 엄청나게 잘된다. '목사 지도자 평신도'

가 삼위일체가 되어 확 뭉쳐야 된다.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인 자 육적인 자 이제 온 자들’이다.

12. ‘구원자 육적, 영적 증거자 따르는 모든 자들’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3위에 땅의 육이 끼면 ‘4위’가 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섭리다.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눈치, 코치 안 해 주면, 자기 식으로만 하게 된다.

2. ‘기미’를 없애는 데도 약이 되는 화장품을 두 달 이상 매일 발라야 기미가 겨우 없어진다. 하물며 ‘죄’를 없애는 데에 잘못했다는 말 한 마디로 없애려 하느냐. ‘휴거’되는 데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행한다고 되겠느냐.

3. 1년씩 기도하고 말씀을 행하며 정성을 들이며 살고, 또 2년째에는 더 단계를 높여서 행하고, 3년째에는 더 단계를 높여서 해야 <육>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됨에 따라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됨에 따라 <영>이 변화되어 ‘휴거의 영’이 되지 않겠느냐.

4. (“천국에서도 일을 하니, 천국의 삶도 힘들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 이같이 대답하셨다.) 천국에서 하는 일은 아무 고통이 없다. 고통 없이 일하는 것은 쉬는 것이다.

5. 내가 안 물어보면, 알아야 될 것도 평생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

6. 너에게 필요한 것과 섭리사에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아라.

7. 물어보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다.

8. 하나님과 성자와 주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한없이 물어보게 된다.

9. 물어보지 않는 자는 자기 주관으로 하는 자다.

10. 하나님께 또 묻기를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렷하게 나오고, 또 인성이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존재를 깨우쳐 주시어 <삼위일체의 본질과 존재>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삼위일체 급의 존재가 또 있습니까?” 했다. 하나님은 “더 없다.” 하셨다.

11. 또 묻기를 “천국에는 수십억이 훨씬 넘는 엄청난 수의 천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밑에 수십 명, 그 밑에 수백 명, 그 밑에 수천 명, 그 밑에 수만 명, 그 밑에 수십만 명, 그 밑에 수백만 명, 그 밑에 수천만 명, 그 밑에 수억 명, 그 밑에 수십억 명으로 천국의 공직자들이 질서 있게 사명을 하며, 뼈와 살이 일체 되어 있듯 천인들이 일체 되어 산다. <섭리사>도 사명자 한 명 밑에 두 명, 그 밑에 세 명, 그 밑에 네 명, 그 밑에 일곱 명, 그 밑에 열두 명, 그 밑에 스물한 명... 이렇게 계속 질서 있게 내려가면서 수천 명을 다스리며 사명을 하듯이, <천국>도 그러하다.” 하셨다.

12. <영>들은 ‘하늘에 속한 형제’로 형성되지 않으면, 흑암으로 사라진다.

13. 자기 육을 통해 자기 혼과 영을 하늘에 속한 형제로 형성시켜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곧 육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 혼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영도 변화되어 완성된다.

14. 재목을 가지고 집을 짓다가 말면, 재목은 흩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영’을 하늘나라 형제로 형성시키지 않으면, 그 영은 흑암으로 사라진다.

15. 기도하고 밤마다 자기 혼을 지켜보아라. 예사로 보지 말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아라.

<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습관이 들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도 자신은 모른다.

2. 모순의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만, 나쁜 습관이 들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임을 알고 분별한다.

3. 모르는 사람은 알지 못하듯이, 그릇된 습관이 든 사람은 온전한 것을 모른다.

4. 구시대 말씀과 주관권에 습관이 들어 행하니, 그릇된 것인지도 모르고 산다. 새 시대로 나와서 구시대 습관을 버린 자만 그것이 그릇됐다는 것을 안다.

5.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자기 생활로 생각한다.

6. 악을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사는 자는 그것이 악이라고 하면 반항하며 “무슨 말이나?” 혈기를 내며, 자기 습관대로 분노한다. 악한 말도 자기 습관대로 선한 말같이 한다.

7. 불의를 의인 줄 알고 습관 되어 행한다.

8. 습관을 ‘발전’이라 생각하고 더 행한다.

9. 습관에 중독되면, 하나의 생활이 된다. 고로 그것을 안 하고는 못 견딘다.

10. 어떤 도시 길을 가다가 한 여자가 길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거기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 하니, “나는 된다.” 말했다. 길가에서 소변보는 것이 습관이 들어, 화장실까지 가기 싫어서 그렇게 생활해 온 것이다. 습관이 들면, 자기는 편해서 자기 행동이 모순이라는 것을 모른다. 오히려 남이 못 하는 것을 자기만 특별히 하는 것으로 안다.

11. 습관이 되어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고 하나의 생활로 보고 행하는 것이 없는지,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12.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못 벗어나서 그대로 10년, 100년, 1000년씩 간다.

13. 종교 세계에서도 습관이 들면 뇌가 구시대에 절어서 고정관념이 박혀 아예 다른 이상적인 것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구시대의 것만 좋아하며 살아간다.

14.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것, 점을 보는 것도 모두 습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다.

15. 자기를 보아라. 가정을 보아라. 교회를 보아라. 종교 세계를 보아라. 민족과 세계를 보아라. 모든 사람들을 보아라. ‘습관의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보면, 잘못된 습관이 들어 행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 자기 인생부터 잘못된 습관을 고쳐라.

16. 습관과 버릇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가 보면, 흰옷에 흠칠한 것이 보이듯 흰히 보인다.

17. 잘못된 습관을 벗어난 자가 보고 말해 주어 고치게 하여라.

18. 그릇되게 글 쓰는 습관, 그릇되게 말하는 습관, 그릇되게 행하는 습관, 그릇되게 듣는 습관, 그릇되게 보는 습관 등 그릇된 습관은 다 고쳐라. 그래야 복을 얻게 되고, 평소에 안 보이던 좋은 것이 보이고, 차원을 높인다. 그릇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휴거’에 있어 필수다.

19. 사탄은 꼭 사람이 습관이 든 대로 역사하여 유인한다. 기도하다가 조니, 내 옆에서 사탄이 졸고 있었다. 특히 단상 앞에서 기도하다가 졸지 말아라.

20. 악인은 의인을 씹는 것이 습관이 들어, 마치 개가 돼지 뼈를 씹듯 한다.

21. 악평하는 데 습관이 든 악평자들은 그 습관을 못 고치고, 그 습관 세계의 특권으로 스스로 절대 예정된 것같이 악평의 길을 가게 된다.

22. 습관은 체질이 된다.

23. 습관은 자기를 고통길로 몰고 간다.

<2013년 12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24.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일에 몰두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성자에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두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까?’ 하며 많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습관이 든 것이 아닙니까? 제 뇌 좀 봐 주세요.” 했다. 이에 성자는 “그것은 습관이 든 것이 아니고 ‘관심’이다.” 하셨다.

25. <습관>과 <관심>은 방향도, 차원도, 내용도 다르다.

26. <관심>은 거기에 대해 심정과 생각과 마음을 쏟는 것이다.

27. 습관이 잘못 들었는데 그것을 못 고치면 ‘지옥’까지 간다.

28.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성공한다.

29. 습관대로 행하면 편하게 느껴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이는 이미 그 습관이 생활화된 것이다.

30. 잘못된 습관이 들면 자기 노선이 되어 모른다. 옆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행하는 자는 바로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31. 교역자의 습관을 교인들이 따라간다.

32. <뇌의 습관>을 ‘마음·정신·생각’이 따라가고, ‘혼과 영’도 따라간다. 절대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습관의 병을 고쳐라. 그래야 차원 높여 살게 되어, 그 날 바로 얻을 것을 얻는다.

33. 저마다 모두 잘못된 습관을 찾아내어 고쳐라.

34. 자기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35. 지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런 자의 영만 천국에 간다.

36. <휴거>는 딴 세계로 옮기는 것이다.

37. 잘못된 습관을 고쳐 ‘습관의 주관권’에서 벗어나라.

38. 모든 것을 성자의 뜻대로 100% 행하면, <휴거>의 비행기는 뜬다. 비행기가 땅에서 떠서 이륙하여 날아가는 그 순간이 <휴거 100선>이다. 그리고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시간이 <휴거 200선>이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휴거 300선>이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려 볼 일을 보는 것이 <휴거 300선>에서 누리는

것>이다.

39. 좋은 습관을 들여라. 그러면 그만큼 행하기 쉽다.

40. 성자 사랑 습관, 기도 습관, 말씀 습관, 증거 습관, 각종 좋은 것은 다 습관을 들여 놓아라. 그럼 그만큼 행하기 쉽다. 안 하고는 못 배긴다.

41.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체질로 만들어라. 반복하면 체질화된다.

42. 빠른 치타도 뛰지 않고 걸어 다니는 습관이 들면, 죽은 토끼나 동물을 먹어야 된다.

43. 빠른 치타는 빠르게 뛰어서 도망가는 동물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뛰다 보니 더 빨리 뛰게 된 것이다.

44. 더 빨리 잡으려면, 더 빨리 뛰어라!

45. 소망을 빨리 이루려면, 더 빨리 뛰어라!

<2014년 1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랑 실천>은 <사랑 실체>다.

2.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실천하면, 실제 현상이 된다.

3. 사랑하는 생각과 사고는 관념이다. 실체가 아니다. 그 생각과 관념을 실천하면, 실체로 변화된다. 생각이 실제 존재로 변한다.

4. 천국의 영들은 사람과 다르다. 생각이 그대로 실체가 된다.

5. 가령 영계에서 영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실체가 된다.

6. 육계에서는 생각과 실체가 쪼개져서 논다. 영계에서는 생각과 실체가 동시에 논다.

7. 육계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몸이 가서 직접 때리고 죽여야 상대 육이 죽여진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영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면, 실제로 상대 영이 맞고 죽음을 당한다. 그러나 영은 안 죽으니, 죽은 꼴만 된다.

8. 관념적 사랑은 실체가 없는 정신에서 끝나는 사랑이다.

9. 철학도 <관념 철학>은 <실존 철학> 밑에서 논다. 관념 철학에서 한 차원 높여서 '행해야' 실존 철학이 되어 얻는다.

10. 니체는 관념 철학만 하다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했다. 행해 보지도 않고 관념에서 끝났다. 고로 신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은 자기가 그 차원에서 실제로 행하고 대해야 확인된다.

11. 니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부패돼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했다. 신은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되면, 오지 않으신다. 역사하지 않으신다. 신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니체 철학에 속한 자들은 비판을 잘한다.

12. 니체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믿으니, 그 사고와 행위가 죽은 시체가 되었다.

13. 사람이 생각했던 것을 행하면 집도 실체가 되고, 작품도 실체가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육신이 행하면, 혼도 영도 확실하게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생각한 것을 얼마나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14. 행하지 않는 자는 육계에서도 관념적인 생각만 있고,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행하면 실체를 얻는다.

15. 성자의 말씀을 듣고서 머리에 넣고만 있으면, 관념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행하면 실체를 얻게 되고, 영도 실체로 변화되어 실체 천국을 얻게 된다. 그러니 행해라! 그러나 행하기가 어렵다. 집을 짓기 위해 구상하면 기쁘다. 그러나 행하려면 생각보다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러나 행하는 대로 실체를 얻게 된다. 신앙 세계에서든 뇌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기쁘다. 하지만 실제로 행할 때는 너무 어렵다. 계속 단계별로 행해라. 그러면 실제 존재물을 얻게 된다. 영과 혼도 얻고, 육도 얻는다.

16. 지구 세상을 보아라. 건물도 환경도 처음에는 생각하고 구상했다. 그 구상대로 행하고 만들었기에 건물도 환경도 얻게 된 것이다.

17. ‘구상과 실행’이다. 그러면 실체가 된다.

18. ‘관념과 행실’이다. 그러면 실체가 된다.

19. 6개월 동안 실제로 절식 기도를 했다. 생각으로만 하지 않았다. 고로 내 두뇌 차원도 더욱 높아졌고, 내 혼과 영도 더 변화됐다. / 또 휴거될 자들의 혼과 영도 실제로 변화되고 달라져서 실제 휴거 길에 올랐다. / 또 못 얻을 것들이었는데 귀하고 신비한 것들을 실제로 얻게 되었다. / 생명들도 얻게 되었다. → 행하지 않았으면, 실체는 못 얻었다. 행함으로 실체가 되었다.

20. 6개월 동안 실제로 절식 기도를 하며 관념적인 생각을 실제로 행하니, 성자가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차원 높은 시대 말씀이었다.

21. 육신이 실제로 기도하면서 보니, 내 육이 기도하는 대로 내 혼이 움직이며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내가 찾으려 하는 것들을 찾고 있었다. 찾고서 내 육에게 찾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혼에게 들은 말을 마음에만 두고 생각만 하면 ‘관념’으로 끝나니, 누구를 시켜서 실제로 몸이 가서 행하게 했다. 그런데 실제로 찾던 것이 나와서 찾은 자가 놀랐다! 행실은 실체를 낳는다.

22. <생각>은 ‘관념’을 낳지만, <실천>은 ‘실체’를 낳는다.

23. 작아도 ‘실체’를 얻어야 되고, 커도 ‘실체’를 얻어야 된다.

<2014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24. 영계에서 혼으로 보고 그냥 두면, 꿈에 불과한 것이 되어 “꿈이네.” 하고 실망한다.

25. 꿈에서 본 것을 낮에 육이 행하면, 실체가 되어 실제로 이루어진다. 고로 “꿈이 허무하네.” 하지 않고, “꿈이 실체가 됐네.” 한다.

26. 꿈을 실제로 행해라. 그러면 ‘실체’가 된다.

27. 꿈에 좋은 꿈을 꾸고 행하지 않았더니, 그날 꿈에 관한 것을 얻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좋은 꿈을 꾸고 ‘어디에서 꿈이 이루어질지 모른다.’ 하고 열심히 글을 쓰며 행했다. 결국 좋은 시 열두 편을 썼다. 그 꿈은 이뤘었다.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라 말도 안 했다. ‘모르는 여자네. 그 많은 제자들을 두고, 왜 얼굴도 모르는 여자가 꿈에 보이냐?’ 생각했다. 그 여자에게 “어디 살아요?” 하니, “왜 물어요?” 했다. 나는 “제자들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제자들은 찾아도 안 보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생소해서 묻는 거예요.” 했다. 그 여자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하고 물었다. “성자가 가르쳐 준 말씀을 전했더니 믿고, 찾았던 진리라고 하며 나를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며 따릅니다.” 했다. 여자는 “어떤 말씀이요? 저도 진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 그 진리를 찾고 있어요.” 했다. 그래서 말씀 몇 개를 가르쳐 줬더니, 여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맞아요! 내가 찾던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내 품에 안겨 좋아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열 군데를 더 돌아다니며 잘 대해 주었다. 꿈에서 깨어나서 ‘전도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시대를 깨달았다는 편지가 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편지가 안 와서 실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생시에 그 꿈을 이뤄 보자!’ 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계시 글 중에 결재한 것들도 다시 보고, 써 놓은 말씀들도 교정하고, 그다음에는 시를 썼다. <시>를 ‘내 사랑하는 여인’으로 보니까 ‘혹시 깊은 시가 오려나?’ 하고, 꿈을 생각하며 시를 썼다. 그때 바로 글이 잡혀 12편의 좋은 시를 썼다. 상(上)차원 시에 속했다. “으앗! 좋다! 작품이다!” 했다. 이같이 꿈을 그냥 두면 흘러가 ‘관념’이 된다. 행하니, 꿈을 이루었다. ‘꿈을 어떻게 이루나.’ 계산하고 해몽하면서 실천해라!

28. 오늘 새벽에는 나와 상대 한 명과 축구를 하는 꿈을 꾸었다. 상대가 내 골대까지 공격해 들어왔다. 나는 전력을 다해 골대 앞에서 상대를 제치고 수비하면서 막았다. 상대가 슈팅을 했는데 빗나가서 내가 다시 볼을 잡고 내 골대로부터 멀리 차 내 위기를 면했다. 꿈이 사라지고 잠에서 깨니,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기도하면서 꿈을 깨달았다. ‘새벽에 정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니, 시간을 공격당하는구나.’ 깨닫고, 계속 기도했다. 낮에는 시간을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종일 펜을 놓지 않고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말씀을 썼다. 때는 2013년 11월 10일이다. 시간의 공격을 당하지 않고 주일 성찬식 예배를 드리고, 잠언과 계시를 모두 받아 썼다.

29. ‘뇌 지옥’은 ‘몸 지옥’이다. / ‘몸 고통’은 ‘몸 지옥’, ‘마음 고통’은 ‘뇌 지옥’이다.

30. 하나님과 성자를 벗어나 ‘뇌 지옥, 몸 지옥’의 고통을 받을 정도면, 그 ‘영’도 지옥 주관권에서 지옥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라.

31. 생각을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뇌 지옥’ 되게 만든다. 필요 없는 걱정·근심·염려는 ‘뇌 지옥 고통’이다.

32. 절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와 일체 되어 주와 같이 살면, ‘뇌 천국’을 만들어서 산다.

<2014년 1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열차 안에서 다음 칸으로 옮겨 타라고 1시간을 줬다. 시간을 줘도 다음 칸으로 옮겨 타지 않는 자는 이전 칸에 있으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다음 칸으로 옮겨 탄 자만 다음 고속 열차를 타고 다음 차원으로 간다. / 시대 역사도 그러하다. <역사의 열차>다. 옛 시대 칸에서 새 시대 칸으로 갈아타 <새 시대 고속 열차>를 타기다.

2. 잘못된 마음, 정신, 생각, 사고는 ‘올바른 행실’로 고치고 교정하는 것이다.

3. 잘못된 것을 ‘마음’으로 고치겠느냐. ‘손’으로 뜯어 고치고, ‘몸’으로 뜯어 고쳐 행해야 고쳐진다. 이와 같이 뇌와 마음과 생각에 잘못 인식된 것과 잘못된 정신과 사고를 ‘행위’로 고쳐라.

4. 자기 생각이 자기를 망하게도 하고, 자기를 흥하게도 한다. 고로 ‘전능자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무섭고 강하게 자르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5.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육성과 자기 생각을 죽였다. 자기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졌다.

6. 자기를 구원하는 자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7. 성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곧 <말씀>이다. 그 생각을 가져라. 그 생각, 곧 그 말씀으로 자기를 강하게 다스려라.

8.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옥에 가게 하기도 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도 한다.
9.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사탄이 미완성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흑암 쪽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한다.
10.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겨라. 성자에게 맡겨 버려라. 이것이 최고의 도(道)다. 너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다가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11. 완벽한 자는 혼자 있어도 자로 켜 듯 행하나니, 자기가 완성된 연고니라.
12. 완벽하지 않은 자는 수많은 무리가 있어도 온전하게 존재하지 못하느니라.
13. 자기를 이겨야 사탄을 이긴다.
14. 강한 기도다. 강한 정신이다.
15. 뇌를 고쳤어도 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뇌를 써야 된다.
16. 차만 고치고 가만히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차를 고쳤으면 운전하면서 써야 된다. 이와 같이 강한 마음과 생각으로 고친 뇌를 써야 된다.
17. 기도할 때 ‘잠’을 이기고 ‘잡생각’을 이기듯, 자기가 자기를 이겨야 사탄을 이긴다.
18. 자기가 스스로 불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를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곧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19. 자기 생활의 승리를 해야 된다.
20. 성자와 일체, 주와 일체다. 그러면서 행하여라. 그러면 자기를 이긴다. 고로 사탄을 이긴다.
21. 자기를 이긴 자라야 타인도 이기게 해 준다.

<2014년 1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늦으면, 약한 사람한테도 당한다.
2. 늦게 떠나면, 어른이라도 제시간에 먼저 뛰어간 어린아이한테 당한다.
3. 정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행해야 된다.
4. 환청은 귀를 막아도 들린다. 신의 소리는 귀를 막아도 마음으로 들린다.
5.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과 혼과 영으로 신과 통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신과 통하려고 하면 통해진다. 신과 통하면 살게 된다.
6. 영파, 정신파는 마치 지상의 전파와 같다. 지상에서 ‘전파’를 가지고 서로 통하듯, ‘영파’를 가지고 영계도 가고 신과도 통한다.
7. 영의 세계는 ‘육’으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다.

8. 태아가 커서 태 안에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태반이 필요 없다. 이와 같이 지구도 생명의 구원역사가 끝나면, ‘지구’라는 태도 필요 없으니 없앤다.

9. 기도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각각 부르고 찾아라. 그리고 각각 구해라. 너의 말을 듣고 합당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감동을 받고 너의 마음을 가지고 너의 몸이 되어 준다. 그리고 천사나, 사역자를 통해 행하신다.

10.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제2의 너’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해 준다.

11. 주인은 제값을 부르는데, 직원은 속여서 말한다. 자기가 남는 것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12. 육의 세계에서도 사람끼리 대화하지 않으면, 딴 세상이 된다. 특히 영의 세계에서는 대화하지 않으면, 딴 세상이 된다.

13. 안 보여도 대화하고 소통하면, 보이고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14. ‘기도’와 ‘대화’와 ‘소통’이다.

15. 성자가 열흘 동안 옆에 계셔도 본인이 대화하고 기도하며 성자를 부르지 않으면, 성자와 안 통한다.

16. 대화하면, 신은 안 보여도 느껴지고, 몸에 스쳐 지나가고, 꿈에서 영적으로 만나고, 상징으로 만난다.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각각 부르고 대화함으로 이렇게 느끼고 만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17. 한 세상, 한 지역, 한 주관권에서 같이 살아도 ‘대화’와 ‘소통’으로 융합해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보람이 있다.

18. 영의 세계는 통하지 않으면 무(無)의 세계다. 통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산다.

19. 영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안 통하면, 딴 세상이다. 교통하면, 같이 생활하게도 된다.

20. 성자가 <목적>을 두고 세상에 왔어도.. 통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얻고, 같이 누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뜻을 이루며, 영의 세계의 목적을 같이 이루게 된다.

21. 사망권에서 사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안다. 생명권에 사는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22. 천국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기쁨’을 받고 살고, ‘천국의 삶의 기쁨’을 받고 산다.

<2014년 1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가르쳐 줘도 ‘관념’으로 배우는 사람은... 실패한다.

2.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도 실패한 자가 있기에 알아보니, ‘관념’으로 배운 자였다.

3. 귀한 말씀을 귀한 줄 모르고 ‘보통’으로 듣는 사람은... 뇌가 굳어 버린 자로서 늙은 구시대 사람이다.

4. 제일 무서운 정신병이 귀한 말씀을 해 주어 늘 들어도 번역이 되어 ‘보통’으로 듣는 자들이다.

5. 사람이 마음·정신·생각이 무기력해지면, 귀한 말씀을 해 줘도 귀한지 모르고 보통으로 듣고, 귀한 것을 봐도 귀한지

모르고 보통으로 보게 된다.

6. 섭리인들은 늘 시대 최고의 말씀을 듣고 휴거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귀한지 모르고 면역된 자들이 많다. 마음·정신·생각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7. 성자도 주도 매일 말씀하니, 귀한지 모르는 것이다. 성자가 그 영을 휴거시켜 영영 떠나시려고, 주와 함께 자주 만나 주시는 것이다.

8. 성자는 한 번 떠나면, 영영 안 오신다.

9. 신약 때 예수님이 살아 있었을 때 역사하셨던 성자는 예수님이 떠나니, 때가 되어 떠나셨다. 그리고 신약 주관권 안에서는 안 오셨고, 새 역사 성약이 시작됐을 때 재림의 신으로 다시 오셨다. 그러나 재림 때도 육 주관권으로는 안 오시고, 성약의 사명자의 육을 쓰고 오셨다. 이제 신부들의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시면, 성자는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성자는 주와 함께 자주 나타나 말씀하신다. 마지막 휴거 때라 그러하다.

10. 사랑하는 사람도 떠날 때는 자주 만나 준다. 떠나는 자만 떠나는 것을 안다.

11. 주는 귀하다. 그러나 주가 귀한지 모르는 사람은 모두 주 곁을 떠났다. 이는 마치 물 옆에서 사니, 물이 귀한지 모르고 떠난 것과 같다. 물을 떠나서 간 곳은 사막이었다. 하루라도 물이 필요한데 2개월, 1년, 7년, 10년, 20년씩 물 없이 살고 있으니, 나중에 그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물 옆에 사는 자들아. 너희가 사막의 세계를 안 가 봐서 모르고 산다. 사막은 흑암이다. 지옥 쪽 삶이다.

12. 너를 구원하는 자와 성자가 너를 데리고 와서 네 영혼을 구하는데도, 모르고 떠나간 자들아. 육은 먹고 입고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네 혼과 영을 못 구하니 탄식과 고통이다. 옆에서 살아도 주가 원하는 자만 구한다.

13. 주는 자기가 원하는 자만 구한다.

14. 네가 주를 버리면, 주도 버릴 권한이 없겠느냐.

15. 열매를 얻기 위해 꺾어 온 나뭇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가지는 버린다.

16. 과일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가 있다. 가지는 과일을 따면 버린다. 과일나무는 과일이 없어도 다음 해에 또 열매가 열리니, 퇴비하며 가꾸어 준다.

17. 주를 맞은 자는 주를 따라서 딴 세상에서 살고, 주를 못 맞은 자는 주와 떨어져 딴 세상에서 산다.

18. 한 번 버려진 자는 이미 다른 운명권,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

19. 처음 사랑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이며 행복한 자인지 아느냐. 열심으로 살아라.

20. 성자를 버리고, 시대 말씀의 주인을 버리고 간 자들의 영혼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찾을 수도 없는 곳,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사망과 흑암의 세계인데, 절망과 멸망의 한 장소였다. 지구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곳에 있었다.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갇혀서 악마에게 매일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악마가 그 영혼에게 “너 때문에, 너에게 고통을 줘야 하니, 나도 여기 있게 되었다.” 하며 매일 고통을 주고 있었다. /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다.

21. 주를 만났을 때 이성 향락과 세상 것의 유혹에 빠져 살다가 그리되었고, 교만함, 안일함, 게으름으로 살다가 그리되었고, 주가 귀한지 모르고 시대 말씀이 귀한지 모르고 살다가 그리되었고, 악평하고 불만하고 살다가 그리된 것이다. 지금도 섭리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나간다.

22. 이성의 마귀 밥이 되어 가고, 물질의 마귀 밥이 되어 가고, 악평과 불만의 마귀 밥이 되어서 나간다. 마귀는 그 사람을 자기 밥으로 삼고, 영원히 괴롭힌다. 주를 떠난 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 괴로움은 지구 세상에서 나오는 하루 치의 오물을 매일 다 먹어 치워야 하는 고통이다.

<2014년 1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의를 행치 않음'이 <지옥>이고, '의를 행함'이 <천국>이다.
2.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3. 할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이다.
4. 힘들지만 하는 것이 <천국>이다.
5. 자기 영을 위해, 주를 위해, 성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행한 것의 대가는 '육신'이 다 받을 수 없다. '영'이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6. 시계는 그때의 시간을 알려 준다. 자기 혼도 자기 육의 행위를 알려 준다.
7. 행하면 갈 길을 가게 되고, 행하지 않으면 갈 길을 못 가게 된다.
8. <천국>도 행한 자만 가고, 행하지 않은 자는 못 간다.
9. 자기 환경과 처지와 각종 상황은 누구에게나 자기 차원에 따라 온다.
10. 행하는 자는 행한 대로 탄 세상에서 산다.
11.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는 대로 탄 세상에서 산다.
12.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아는 자는 알고 따르는 대로 탄 세상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탄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고로 서로 만나지도 못한다. 아는 자가 모르는 세계로 모르는 자들을 구하러 가기 전에는 절대 만날 수가 없다.
13. 아는 자도 그 아는 주관권 세계에서 아는 만큼 행해야 또 아는 세계에서 또 탄 세상에서 살게 된다. 알아도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릿속에 생각만 하며 탄 세상에서 살아간다.
14. 아는 자는 희망으로 사는 자다. 아는 만큼 행하는 자는 손으로 잡고, 먹고, 누리고 사는 자다.
15. 하나님 주관권 세계에서든 수고의 대가는 순리의 법이다. 세상 주관권 세계에서든 역시 동일하다. 하면 얻고, 안 하면 못 얻는다.
16. 할 일이 없는 자는 지능이 낮은 자다.
17. 지능이 높으면 할 일이 정말 많이 보인다.
18. 지능이 낮고 생각이 낮아도 할 일이 많이 보인다. 무엇을 할지 모르니, 이것저것 다 할 일로 보인다. 생각이 높으면, 현실을 보고 앞날을 보고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행한다.

19. 생각이 높으면, 판단을 빨리하여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안다.
20.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에 보낸 자를 만나서 행하여라. 삼위일체는 그를 통해 시대의 할 일을 알리신다. 그것을 행해야 욕도 혼도 영도 얻고 누린다.
21. 찾기, 얻기, 만들기, 쓰기다.
22. 인간은 무엇을 행하고 얻어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일체 되어 살지 못하면, 영의 만족과 희망이 없다. 고로 현실에서도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다.
23. 지구만 한 영광을 누려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산다면, 외적 만족에서 끝난다. 그 만족이 영원하지 못하고 때가 되면 끝나니, 허무하다.
24. 민족과 세계의 재벌과 명예가들이 그것을 쫓다가 인생의 해가 넘어갔다. 이는 마치 사냥꾼이 산짐승을 쫓아 잡다가 해를 넘긴 것과 같다. 산짐승을 잡았다 집에 와서 잔치를 해야 하는데, 잡는 데 시간을 다 써서 잔치를 못 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재벌과 명예가들도 그러하다. 육이 땅에서 사는 기간 동안 영을 구원했어야 하는데 세상 것만 쫓아 살다가 인생의 해가 넘어갔으니, 영을 구원하지 못하여 영원한 잔치를 못 한다.
25. 육신의 지능은 하늘까지 닿아 살았어도 영혼을 구원할 생각은 땅에 붙어서 살았다.
26. 지혜자가 누구냐.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사는 자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최고 지혜자다.
27. 먹는 것, 입는 것이 뭐 그리 중하냐.
28. 굶고 헐벗고 살았어도 영혼을 위해 살았으니, 오히려 영원한 것을 얻었고, 육의 것도 더 얻었다.
29. 영원히 귀한 것은 하늘에 있다. 땅의 것은 하루 관광하며 보고 쓰고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

<2014년 1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30. 그때그때 행해라.
31. 많이 행하고 많이 놀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행하고 쉬면서 해라.
32. 3일 동안 먹을 밥을 한꺼번에 해 놓고, 3일 동안 밥 안 하고 쉬고 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밥이 맛없다. 말씀도 그러하다. 그때그때 맞게 말씀을 만들어 듣게 해 주어라.
33. 묵은 곡식은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배를 채우려고 먹는다. 구시대 묵은 옛 말씀도 그러하다.
34. 새 시대 새 양식이다.
35. 부지런한 자와 열심 있는 자가 새것을 먹고 누린다.
36. 새로 농사를 지어야 새로운 곡식을 얻게 된다.
37. 묵은 양식은 맛이 변한다. 묵은 음식은 찬 음식이 되어 맛이 없다. 영양가도 없어서 살도 찌지 않고, 오히려 살결이 거칠어진다. 묵은 옛 양식만 먹는 기성은 은혜의 살이 없고, 오히려 닭살이다.
38. 말씀의 양식을 먹는 대로 반응이다. 행하는 대로 반응이다.

39. 새로운 일, 새로운 기도, 새로운 활동이다.

40. 때가 되어 가을이 되면 각종 곡식을 거두게 되듯이, 때가 되면 여기저기 뿌린 대로 열매 무성이다. 고로 뿌려라. 행해라.

41. 악을 뿌리고 선한 열매를 구하느냐. 엉경귀, 가시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구하느냐. 자기 행위에 따라 열매를 거둔다.

42. 성자와 함께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먹고, 주기다.

43. 세상 향락과 이성 향락을 즐기며 사는 자들은 시한폭탄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며 희망에 불타서 사는 인생이다.

44. 생각이 나침반이다.

45. 저마다 성자의 뜻대로 자기 생각을 무섭게 다스려라.

46.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 저지른다.

47. 좋은 생각으로 인해 복도 받는다.

48.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하면, 성공이다. 최고다.

49. 받은 것을 깨달지 못하면, 못 써먹는다.

50. 받은 것을 알고 깨달으면, 새로 찾은 보물과 같다.

51. 가령 성자에게 큰 돌을 선물 받았는데, 앞면에 있는 형상만 찾고 좋아하며 보고 즐겼다. 실상 그 돌의 다른 면에 다른 형상도 있는데 10년이나 봐어도 못 찾았다. 10년 만에 그것을 찾게 됐다면, 돌 한 개를 또 선물로 받은 격이다. 성자에게 선물로 받은 '사람'도 동서남북으로 보아라. 새로운 면을 찾으면, 한 사람을 더 얻는 격이 된다.

52. 월명동의 돌 중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봐어도 아직도 못 찾은 형상이 있다. 각 방향마다 못 봐서 그러하다. 자기 인생도 특기와 재주와 사명이 없다고 하지 말고, 각 방향마다 자세히 보아라.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어도 자기에게 귀한 것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53. 월명동 지역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받은 지 20년 됐어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보물이 있다.

54. 자기에게 특기와 재능이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여 실망 속에 살아간다.

55. 월명동 <성자바위>도 2013년 10월에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치타 형상, 팬텀기 형상, 발바닥 형상을 더 찾아서 그만한 바위를 하나씩 더 얻은 것이 됐다.

56. 귀한 것을 깨닫고 아는 만큼, 귀한 것을 찾아 자기 것으로 만든다.

57. <성자바위>는 하나님과 성자의 조각이다.

58. <성자바위>는 하나님과 성자가 조각해 놓고, 흙으로 덮어 놓고, 때가 되어 성자의 욕을 통해 찾게 하셨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59. 보물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60. 귀히 여기는 자는 침노하니, 주인이 된다.

61.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다.

<2014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생각났을 때는 그것을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뇌에서 사라져 버린다.

2.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과 실제로 뇌에서 기억하는 것은 다르다. 뇌에서 기억하는 것이다. 마음에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3. 뇌가 녹화해 놓는다. 뇌에 녹화해 놓은 것이 사라지면, 마음과 생각에서도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4. 1초, 혹은 10분의 1초 변쩍 아련히 생각나고 기억났을 때, 그때만 뇌에 스쳐 생각난다. 그때는 마치 눈이 어떤 사물을 볼 때만 보이고, 순간 눈을 돌리면 안 보이듯 하는 것과 같다. 고로 순간 생각났을 때, 기억났을 때, 그때 기록해야 된다. 그때 반복해서 그것을 외워야 된다. 10번, 20번, 30번 외우면 뇌에 저장된다. 외운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또 뇌에서 사라진다.

5. 육의 눈이 본 것과 육의 귀가 들은 것들이 뇌에 저장되어 그 모습들이 생각나고, 그 현상이 환상같이 보인다. 그리고 혼이 꿈을 꾸면서 영적으로 보고 들은 것들과 영이 보고 들은 것들이 뇌에 생각나고 기억나면서, 성자가 계시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 현상이 뇌에 떠오른다.

6. 육의 눈으로 전혀 안 보고 육의 귀로 전혀 안 들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시하시거나 말씀해 주신 것이 뇌에 전달되어, 전달된 것이 생각나게 된다.

7.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만 확실하게 기억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만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 현상이 보이고, 생각나고, 뇌에 연상된다.

8.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 확실히 뇌에 입력된다.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만 생각나고, 느껴지고, 그 현상이 뇌에 그려져 보이게 된다.

9. 가령 자기가 원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고 집중하여 정신일도 하면, 생각한 내용대로 그 현상이 뇌에 보이게 된다.

10.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의 실상이 뇌에 보이는 것도 있고, 상대의 혼이나 영이 실제로 와서 보이는 것도 있다.

11.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과 같은 시간을 정해 놓고 서로 생각하면, 더 실제적으로 확실히 보이고, 생각과 심정이 서로 일체 된다. 성자와도 그러하다. 몇 시에 새벽기도 하겠다고 성자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대로 하면, 성자와 더욱 일체 되어 실감 있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

12. 눈으로 볼 때만 확실히 보이듯, ‘생각할 때’만 느껴지고, 생각이 실상이 되어 그 현상이 그려져 보여진다.

13. 마치 눈을 떠 사물을 보면 보이듯, 성자를 ‘생각할 때’만 뇌에서 생각나고, 마치 눈을 돌려 사물을 안 보면 안 보이듯 성자를 ‘생각하지 않을 때’는 뇌에서 생각나지 않는다.

14. 성자를 ‘생각할 때’는 마치 자기가 눈으로 보고 싶은 자를 보고 있는 때와 같아서 성자가 생각난다. 그때 성자도 알고 너를 보신다.

15. 성자도 너를 생각할 때만 보신다. 고로 성자가 항상 너를 보시도록, 범사에 늘 성자를 부르고 이야기하여라.
16.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필요할 때마다 말하듯이, 성자와도 그같이 하여라. 성자는 항상 옆에 계시며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네가 행하는 것을 보신다.
17. 한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눈으로 볼 때만 보이듯, 성자도 자기가 '생각할 때'만 생각난다. 하루에 성자를 한 번만 생각하면 한 번만 생각나고, 성자를 100번 생각하면 100번 생각난다.
18. 자기를 구원하는 자라도 온종일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도 생각나지 않는다. 어느 때는 상대가 생각하니, 그 생각이 자기에게 부딪혀 불현듯 생각날 때도 있다.
19. '뇌 스마트폰'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쓰지 않으면, 뇌를 고쳐도 무용지물이다. 걸려 오는 전화만 받지 말고, 본인이 전화를 걸듯이 먼저 성자를 찾고 생각해야 된다. 수신만 하지 말고, 발신하여라. 그래야 성자와 수시로 교통한다.
20. 자기가 온종일 상대를 생각하면, 자기 뇌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꽉 차서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잊지 않는다. 그러면 뇌에서 그 사람을 잊지 않는 효과가 있다. 마치 손에 든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손에 쥐어진다. 이와 같이 뇌에서 잊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생각난다. 뇌에서 안 잊어야 상대가 와서 찾아도 바로 교통한다.
21. 눈으로 볼 때만 100% 생생하고, 안 보면 그 현상은 금방 안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할 때'만 생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22. 주를 생각에서 잊지 않도록 매일, 매시간 생각해라. 그러면 주가 너의 그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있다.
23. 주가 보고 싶으면 생각해라. 뇌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뇌에서 주를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않는다.
24. 상대가 나타나는 쪽을 전혀 안 쳐다보는데 그쪽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100번을 나타나고 1000번을 나타나도 모른다. 이와 같이 성자를 생각하지 않는데 성자가 그에게 역사하면, 100번을 나타나도 1000번을 나타나도 모른다. 고로 성자도 주도 생각해라. 생각에서 잊지 말아라.
25. 생시에 주를 생각한 자만 꿈에 옆에 지나가면 주를 알아보고, 생시에 주를 생각하지 않은 자는 꿈에 옆에 지나가도 몰라본다. 이로써 그가 주를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
26. 편지도 생각해야 하게 되지,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못한다.
27. 기도도 생각해야 하지,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못 한다.

<2014년 1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28. 눈으로 보는 만큼만 보이듯이, 생각한 만큼만 생각으로 보인다.
29. 육의 눈으로 집중해서 볼 때 확실하듯, 생각으로 집중할 때 확실하게 생각난다.
30. 꿈을 꿔어도 흐릿하게 기억나는 것은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의 상태가 흐릿한 차원에서 봤기 때문이다. 혼이 꿈에서 확실히 안 보고 제대로 안 봤기 때문이다.
31. 생시에도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을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고 보면, 봤어도 기억이 안 나고 모른다.
32. 과거에 봤던 것 중에 확실히 기억나는 것이 있고, 기억이 흐릿한 것도 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볼 때 확실히

봐서 뇌에 입력되었기 때문이고, 기억이 흐릿한 것은 볼 때 확실히 안 봐서 뇌에 입력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33. 과거에 확실히 봤어도 오래되어서 기억력이 감퇴되어 흐릿하게 기억나기도 한다.

34. 뇌가 굳으면, 잠자는 뇌가 된다. 뇌를 풀고 다시 보면, 잘 생각난다.

35. 뇌가 굳었다는 것은 마비됐다는 것이다. 마치 몸이 굳어서 못 느끼는 것과 같다.

36. 뇌가 굳은 원인도 있고, 뇌세포가 죽은 원인도 있다.

37. 뇌세포의 일부가 아예 죽어 끝난 뇌도 있다. 치매나 중풍으로 아예 마비된 것이다. 이때는 재생이 불가능하다. 절대 신이나 재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8. 뇌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써야 된다.

39. 생각을 늘리지 말아라.

4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실 때, 뇌의 생각이 총명해진다.

41. 똑똑히, 똑바로, 세밀하게 봐야 제대로 본 것이다. 생각도 정신일도 하고 똑바로 생각한 것만 제대로 생각한 것이다.

42.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만 생생하다.

43. '생각할 때'만 생생하다.

44. 주를 생각해라. 신앙이 안 죽는다.

45. 휴거되려면, 매일 성자와 주를 생각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46. 생각에서 잊으면, 할 일을 못 한다.

47. 모르는 것같이 억울한 것이 없다.

48. 생각을 안 하면, 뇌에서 잊어버리고 모른다.

49. 알려면, 성자와 그 육인 주를 생각해라. 생각해야 성자와 주가 기억나고, 복을 얻을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게 된다.

50. 생각이 안 나면, 싫어지게 된다.

51. 뇌에서 잊으면, 생각에서 잊게 된다.

52. 생각하고 행해야 힘을 받고 목적을 이루게 된다. 뇌에서 생각하고, 몸으로 실천해라.

53.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 영적 힘이다. 몸으로 실천해야 실감 나고 남는다.

54.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정신적,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육도 같이 행해야 된다.

55. ‘생각과 행동’은 별개이면서도 하나다.
56. 뇌에서 생각한 그림을 몸인 손으로 그려야 남는다.
57. 생각으로 뇌에 시동을 걸고, 몸으로 행하기다.
58. <생각>은 ‘마음 기쁘기’이고, <행동>은 ‘몸 기쁘기’이다.
59. 생각도 자꾸 해야 몸같이 단련되고 연단되어 튼튼해지고 유능해진다.
60. 눈을 떴을 때 본 것을 눈을 감고 생각하면 뇌에 떠올라 영상이 보일 정도까지 생각이 유능해야 된다. 정신일도 하고 혼이 보는 것과 일체 돼야 한다.
61. 눈으로 볼 때만 보이듯, 생각할 때만 생각나고 느껴져 보이는 것이다.
62. 뇌는 자체에서도 영상이 돌아가고, 생각할 때 영상이 돌아간다.
63. 지나가는 한 여자를 눈으로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한다. 이성으로 보기도 하고, 그 여자의 스타일을 보기도 하고, 무엇을 하는 자인지 보기도 한다. 지나가는 여자는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의 생각을 전혀 모른다.
64. 성자는 우리가 생각하기만 하면, 언제나 마음과 생각을 연결해 놓아서 생각하는 대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자를 생각하면, 성자가 우리를 보기도 하신다.
65.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거리에 지나간다 하자. 육교에서 자기만 사랑하는 자를 보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의 육은 그것을 모른다. 그렇다면, 그 혼은 어떨까? 혼이 육보다는 신령하여 더 잘 알지만, 육이 감지하지 못하면 혼도 감지하지 못한다. 혹여 혼이 감지하고 봤어도 육이 혼과 통해야 육이 혼의 생각을 받아 눈으로 확인하고 알게 된다.
66. 뇌도, 생각도, 혼도 신같이 개발하여 달인이 되게 해야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느끼게 되고, 보람을 누리게 된다.

<2014년 1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행함의 법칙>이다.
2. 며칠 행하면 표가 나고, 며칠 안 하면 표가 난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3. 제때 안 하면 표가 나고, 제때 하면 표가 난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4.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제때 하다가 한 번만 안 하면 표가 난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이같이 기도도, 행할 일도 제때 안 하면 표가 난다. 또 하면, 바로 표가 난다.
5. 육으로 혼과 영을 신으로 만들고, 혼과 영으로 육을 신으로 만들면서 살아야 된다.
6. 자기가 자기를 챙기며 존재시켜야 된다.
7. 자기가 어떤 일을 안 하면, ‘육’이 죽기도 하고 ‘영’이 죽기도 한다.
8. 자기가 숨을 쉬듯,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9.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았어도 죽은 삶이다. 하면 살아난다.

10. 어떤 일은 1분만 늦게 해도, 10초만 늦게 해도 죽느냐, 사느냐가 좌우된다.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렇게도 엄청난 운명을 좌우한다.

11. 1초를 가지고도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표가 나게 운명이 좌우되는 것도 있다. 신이 되어 제때 해라.

12. 작든지 크든지 얼마나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느냐가 문제다.

13. 큰 것을 받아도 마음과 생각과 뇌의 차원을 높이고 보면, 훨씬 더 이상적이다.

14. 조금 더 한 것이 그리 크고도 크다.

15. 월명동에 조금 더 큰 돌을 갖다 쌓고, 또 전보다 조금 더 큰 돌을 갖다 쌓다가, 2012년도에 130톤이 나가는 돌까지 갖다 댔다.

16. 처음에 월명동에 컨테이너를 놓고 집같이, 성전같이 사용했다. 조금만 더 좋게 하자고 하면서 수차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성자 사랑의 집>을 짓게 되었다.

17. 인간이 온전해지는 것이란, 신같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18. 온전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간다.

19. 하나님은 인간이 온전해지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일체 되면 온전해지고, 그 말을 지켜 행하면 온전해진다. 한 번에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온전해진다. 나무도 과일도 점점 커서 온전해지는데, 왜 인간이 못 하느냐.

20. 온전해질수록 주와 가깝고, 성자와 가깝다.

21. 온전한 정도에 따라서 같은 신부라도 A급, B급, C급으로 갈려 가게 된다.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급대로 갈려 간다.

22. 과정 중에는 크느라, 만드느라 A급, B급, C급으로 차이가 있다. 다 만들면 누구나 A급이다. 하지만 다 만들었는데도 B급, C급 차원이 되면 안 된다. 다 만들었을 때는 누구나 <자연성전>같이, <성자 사랑의 집>같이 A급이 돼야 한다.

23. 사랑은 동등권이다. 하늘 신부가 되어 삼위일체와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주권이며, 큰 벼슬이며, 최고의 삶이냐. 시대 말씀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하늘과 사랑의 동등권을 갖게 된다. 이런 자들은 성자와 주와 함께 물 위에 같이 머리를 내놓고 손잡고 수영한다.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 못하여 사랑에 동등하지 못한 자는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24.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 뛰기다.

<2014년 1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생각났을 때 해라.

2. 차가 올 때 순간 피하듯이, 생각났을 때 급히 해라.

3. 낮이 오고 밤이 오듯이, 생각날 때가 있고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생각났을 때는 낮과 같다. 그때 안 하면,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태양이 없어지듯, 생각났을 때 안 하면 곧 생각이 없어진다. 그때는 전혀 행할 수가 없다.

4. 생각났을 때는 태양이 비출 때와 같은 때다. 해가 지면 해를 못 보듯, 생각이 사라지면 기억이 사라진다.

5. 이미 진 태양은 못 잡듯이, 사라진 생각은 못 잡는다. 행해야 잡는다. 기록해야 잡는다.

6. 생각났을 때 안 했기에 실패했다.

7. 생각났을 때 안 한 것이 죄다.

8. 생각났을 때가 기회의 때다.

9. 생각났을 때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잘되는 길’이다.

10. 하나님과 성자께 “인간이 하고 싶었어도 뇌에서 아예 생각을 잊어버려서 못 한 것인데, 그래도 심판하십니까?” 물었다. 이때 말씀하시기를 “전에도 생각이 안 났느냐? 전에는 생각이 났다. 그런데 그때 왜 안 했느냐. 생각났을 때도 안 했으니,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 안 한 것도 죄다. 고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셨다.

11.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하여라.

12.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셨다.

13. 성자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 주셨다.

14. 지옥에 간 영이 “내가 왜 여기에 왔지?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로 여기에 왔느냐?” 하니, 사탄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어서 왔다.” 했다. 이에 지옥에 간 영이 “몰라서 못 믿었다.” 하니, 사탄이 “네가 모르니,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때 생각나게 해 주었을 때 왜 안 믿었냐?” 했다.

15. 하나님은 생각이 나도록 ‘영감’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양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 수백 번씩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꿈’으로도 계시해 주셨다.

16. 생각났을 때는 태양이 떠 있을 때와 같다. 때가 되면 해가 저서 캄캄하다. 이와 같이 생각도 때가 되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사라져 밤이 된다.

17. 어느 때는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3 정도만 겨우 기억나게 생각이 온다. 그때 행해야 겨우 느껴진다.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강하게 생각나고 느끼고 깨닫게 해 주시지만, 인간의 욕으로 전해지니 욕과 마음이 무뎌서 그렇다.

18. 생각이 사라지면, 사람의 뇌는 그 일에 있어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깨닫고 생각해라.

19. 해가 떠 있을 때 일을 해라. 해가 지면 못 한다. <생각>은 ‘해’와 같다. 고로 생각났을 때 할 일을 해라.

20. <인생>은 ‘해’와 같다. 해가 지면 캄캄해지듯, 육신의 해가 지면 육이 죽고 끝나니 영원히 못 한다.

21.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아는 만큼만 역사해 주신다.

22.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 가면서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돈을 안 들이고도 천국에 간다.(답 :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아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23. 인생, 몰라서 못 산다.

24. <육계>에서는 ‘육’이 알아야 혼이 육을 통해서 안다. <혼계>에서는 ‘혼’이 알아야 혼을 통해서 육이 안다.

25. <육계>에서는 ‘육신’이 알아야 혼과 영이 육을 통해서 그만큼 알고 행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만큼 역사하신다. <영계>에서는 ‘혼과 영’이 알아야 육이 혼과 영을 통해서 그만큼 행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만큼 역사하신다.

26. 잠에서 깬을 때 즉시 일어나야 하듯,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해야 된다.

27. 생각났을 때, 마음에 느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미루지 말고 시작해라. 그때가 뇌에 기억났을 때다. 시간이 가면, 생각이 흔적도 없이 뇌에서 사라져 잊어버린다. 그러면 몰라서 할 수가 없다.

28. 사람은 뇌에서 생각났다, 사라졌다 한다. 고로 생각났을 때, 기억났을 때 행해라.

29. 가령 꿈을 꾸는 것이나 생시에 보고 들은 것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 그러다가 그와 비슷한 것을 보거나 비슷한 말을 들을 때는 연결되어 다시 생각난다.

30. 뇌는 눈으로 볼 때는 기억하다가, 안 보면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눈으로 안 봐도 생각하면,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31. 하루에도 반복해서 생각하면, 안 봐도 기억이 난다. 눈으로 보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면, 의식을 못 해서 못 본다.

32. 방에 물건이 있어도 “딴 데 있다.” 하며 생각을 굳히고 다니면, 안 보인다.

33. 있는 것도 생각해야 보인다.

<2014년 1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34. ‘뇌 차원’을 높이지 않고 인생을 사는 자는 하(下) 차원에서 살다가 끝난다.

35. 육적 세계의 것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면, 육계에서만 살다가 끝난다.

36. 영계의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마치 꽃만 피우고 열매를 열어 보지 못하고 끝나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37. <영원한 천국 구원을 받고 사는 자>와, <육의 세계에서 살고 끝나는 자>의 차이는 ‘지구’와 ‘모래 한 알’같이 큰 차이가 있다.

38. ‘구원받지 못한 영’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망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 육신만 죽어 없어졌지, 제2의 육신인 마음·정신·생각이 혼과 영과 일체 되어 같이 가기에 육이 지옥에 간 것과 똑같다. ‘육신’이라는 옷만 벗고 몸이 가는 격이다. 고로 육이 지옥에 간 것과 똑같다.

39. 꿈에는 자기 ‘혼’이 활동한다. 이는 자기 ‘육’이 활동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격으로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 자기 영이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가거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40. 밤새 잠을 자면서 하루 종일 피곤했던 몸을 풀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억이 잘 난다. 그때 정신일도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육계를 벗어나 영계로 들어가기 쉽다.

41. 이 세상은 육계다. <육계>는 ‘육’으로 접하고, <영계>는 ‘마음·정신·생각’으로 진입하여 ‘혼’으로 접하고, ‘영’으로

접하는 곳이다. ‘혼’이 영계에 가야 기억이 잘 난다.

42. 잃었던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하려면, 혼계로 가라.

43. ‘육신’은 뇌가 물질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잊어버린다. ‘혼’은 영체라서 기억력이 천재 수준이다.

44. ‘혼’은 항상 <혼의 눈>으로 볼 수 있기에 안 잊어버린다. ‘혼’은 천 리 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태양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마치 방 안에 있는 것을 보듯 잘 본다. 고로 안 잊어버린다. 고로 ‘혼’으로 기억해라.

45. ‘혼’이 기억해도 ‘육’에게 전달해야 육이 기억한다. ‘육’이라는 기계의 ‘뇌, 마음, 정신, 생각’이 고장 나 있든지 흐릿하면, 혼이 본 것이 육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46.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자의 능력으로 접하면, 잘 기억나고 잘 깨닫는다.

47.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는 훈련과 연구를 거듭해라.

48. 뇌와 생각을 놀리지 말고, 매일 기록하고 매일 사용해라. 그래야 무기력하지 않다. ‘뇌’도 육의 지체다. 손과 발도 놀리면 감각이 무뎌지듯이, 뇌도 그러하다.

49. 계속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깨닫고, 행해야 ‘뇌’가 발달되어 기억을 잘한다.

50. ‘뇌’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양하게 발달시켜라.

51. ‘육’이 행해야 ‘뇌’도 행한다.

52. ‘뇌’가 행해야 ‘육’도 행한다.

53. ‘뇌’는 특히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만 기억한다. 고로 그 범위만 알게 된다.

54. 영계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깊고 넓게 본다.

55. 사람의 뇌의 구조는 다 똑같다. 그러나 만들기에 따라 달라진다. 물건도 만들기에 따라 달라지듯, 뇌도 노력하여 만들기에 달렸다.

56. ‘육신’이 성자와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혼과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는 차원까지 변화시키고 만들어라.

57. 환경도 안 만들면 아주 초라하다.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안 만들면 초라하다. 만들면 궁궐같이 된다. 천국 영이 된다.

58. 만들 때는 한없이 힘들다. 하지만 만들면, 지옥에 갈 영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살아 간다.

59. 아는 만큼 만들고, 행하는 만큼 만든다.

60.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만들어라. 그래야 삼위의 나라에 가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된다.

61.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그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 ‘육’이 그를 알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욕의 행위에 따라 ‘영’이 <천국의 형체>로 만들어지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세계적으로 공을 세워도 본인은 당세에 그 영광을 못 받고 죽는다.
2. 만일 ‘자기 영’이 구원받았다면, ‘자기 욕’도 세상에서 그 공적의 영향을 받게 된다.
3. 세계적인 화가들을 보아라. 대부분 당세에는 그림을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다. 괴로워서 자살하여 죽기도 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그 그림이 100억씩 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죽은 후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4. 세상에서 그 이름을 다 알아주고 별같이 높이 대해 줘도 ‘영’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다 필요 없다.
5. 당세에 ‘욕’이 누려야 된다. 그 공적을 ‘영’이 가지고서 영원히 또 누려야 된다.
6. ‘레오나르도다빈치’가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리기 위해 연습했던 습작도 100억이 넘는다. 하물며 ‘구세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느냐.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 작품은 ‘영원한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도 세상에서 그같이 높게 값을 친다. 메시아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다. 이를 깨달아라!
7.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겨 놓으면, 그 말씀의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니, ‘영원한 가치’다.
8. 성자의 한마디 잠언, 성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그림 작품보다 값이 더 비싸다.
9.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하늘까지 치닫게 값이 나간다. 그래도 하나님과 성자가 인간을 통해 그린 그림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과 성자가 인간을 통해 그린 그림은 천국에까지 보관되어 영원히 보게 된다.
10. 인간이 인간으로서 한계를 넘어서 사는 것이 무엇이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11. 인간이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살다 죽으면, 허무하게 땅에서 욕으로 끝나고 만다.
12. 이 세상에서의 인생 100년은 너무도 허무하게 짧은 시간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려고, 짐을 싸는 시간에 불과하다.
13. 짐 싸는 시간이 그리 길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도 그리 길 필요가 없다. 짐을 늦게 싸는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싸듯, 그 정도만 오래 살 뿐이다.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 휴거시킬 시간만 필요하다.
14.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15. 화장실을 다 사용한 사람은 어서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원하듯, 세상의 할 일을 다 한 사람은 지구 세상에서 나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16. 태아가 태 안에서 클 만큼 다 크면, 어서 나오기를 원한다. 더 있어 봤자 고생이다. 어미의 태를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살아야 된다. ‘지구 태’에서 사는 육신의 삶도 그러하다. 욕도 구원받고, 욕의 행위를 통해 자기 영혼이 다 변화되고 휴거됐으면, 어서 넓은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17. 모르면, 자기 앞에 천국으로 갈 차가 대기하고 있어도 인생 광야 들판에서 비바람을 맞고, 천국 차를 보내면서 마

음 즐기며 서 있다.

18. 앞날에 많은 날들이 있어도 오늘 하루만 계산해야 된다. 오늘 하루에 할 일이기 때문이다.

19. 내일 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 못 하면 못 하고 말 일이다.

20. 내일 또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다가 잔뜩 밀려서 결국 못 하게 된다.

21. 그 날 일은 그 날 끝내야 한다.

22. 그 날 일은 그 날 해야 성자와 맞춰서 일이 된다.

23. 영에 속한 자가 승리한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4. 영적으로 하면, 100배, 1000배 빨리하니,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25. 기도하는 자가 없다 생각하고, 너 혼자뿐이라 생각하고 기도해라. 내가 안 하면 기도하는 자가 없어서 안 된다 생각하고 기도해라.

26. 기도를 안 하면, 마치 일을 안 하면 안 되어 있듯이 안 되어 있다. <기도>는 그 일을 자기가 실제로 하는 것과 같아서, 기도하면 그 일이 실제로 된다.

27.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자기가 같이 하는 것이다. 고로 계속하면, 그 일이 된다.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한 혈통인 형제끼리는 ‘형제 차원의 사랑의 교통’은 할 수 있어도 ‘애인의 사랑’은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과거 기독교 기성의 ‘형제 차원의 사랑’으로는 성자가 신랑으로 재림하신 이때에 ‘신부의 대상’으로 성자를 맞지 못한다.

2. 신부로서 신랑 되신 성자를 맞으려면, 새 역사로 와야 된다.

3. <성자>는 ‘사랑의 존재체’다. 고로 누구든지 ‘참되고 진실한 사랑의 존재체’가 아니면,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못 된다.

4. <성자>는 ‘사랑의 존재체’다. 오직 ‘사랑’으로만 성자와 일체 된다. <진리>도 사랑이다.

5.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사랑을 근본으로 한 영의 삶의 세계다.

6. <성약말씀>은 오직 ‘사랑의 말씀’이다.

7. <신약말씀>은 ‘자녀’를 만드는 말씀이고, <성약말씀>은 ‘신부’를 만드는 말씀이다.

8.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으면 무조건 자기를 버리고 따라간다. 그러다가 인생 망한다.

9. 오직 ‘성자’만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크시니, 그 외에는 따르지 말아라. 성자와 그가 보낸 자만 따라가라.

10. 이 세상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삼위가 ‘사랑’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11. 항상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먼저’ 사랑하셨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사는 자는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여 난자가 정자를 만나 생명이 탄생되듯이, <영>이 ‘사랑의 영’으로 탄생된다. 그리고 ‘사랑’으로 거듭나게 된다.
12. 성자가 오신 목적은 ‘사랑’이다. 누구나 그 목적대로 성자를 ‘사랑’으로 대해야만 성자와 통하고, 그제야 성자도 목적한 대로 사랑의 뜻을 그와 함께 펴신다.
13.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무엇을 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성자를 사랑하는 것을 희락으로 삼는 ‘신부의 사랑’이다.
14. 성자를 믿으니 만 가지 일을 해도 ‘사랑’을 100% 주지 않으면 일체 되지 않는다. 성자는 ‘사랑’을 목적하고 왔기에 ‘사랑’을 100% 줘야 ‘천국 가는 사랑’을 이루게 된다.
15. ‘짝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위대하고 생명력 있는 사랑은 ‘본인이 성자와 그 육을 사랑하는 것’이다. 본인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
16. 작든지 크든지 본인이 사랑해야 주체가 되는 성자와 통한다.
17. ‘짝사랑’은 무인도에서 홀로 갇혀서 하는 사랑이다.
18. 성자는 보물이 묻혀 있는 무인도에서 홀로,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랑하는 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육지에서 성자 사랑만 받고 살지 말고, 자기가 뚝단배라도 타고 찾아 가서 성자를 사랑하는 사랑을 해라. 그러면 무인도를 보석 정원으로 만들고,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육이 죽을 때까지 살게 되고, 영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19.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아. 생명을 위한 것이 무엇이나. 오직 ‘사랑’이다.
20. 성자는 ‘사랑’을 목적하고 대하신다. 고로 다른 것으로 대하면 통하지를 않는다.
21. 대상이 주체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해라. 이것이 성자의 최고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이다.
22. 사랑세계에서 다른 것은 안 보인다.
23. 사랑세계에서 사랑을 이루는 자는 주체를 두고 대상이 주체를 사랑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자다.
24. 성자와 주와 사랑을 이루고, 전도하여 생명을 낳자. 그 생명이 성자의 생명으로 제대로 잘 자란다.
25. 자기 홀로 육성에 속해 전도하면, 자기에게 속한 생명을 낳아 육에 속한 자가 된다.

<2014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26. 기도할 때 엎드리면, 자세 때문에 뇌가 눌러서 의학적으로 졸린다. 걸어 다닐 때같이 머리를 들고 기도해야 안 졸린다.
27. 기도할 때는 마치 외울 것을 또박또박 외우듯 하고, 청중을 앞에 놓고 노래하듯 긴장하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네 기도 소리와 기도 내용을 녹음해서 가지고 가니, 제대로 해야 된다.
28. 인간의 <육>은 ‘차길, 철길’과 같고,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은 그곳을 다니는 ‘차, 기차’와 같다.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으로 성자와 주와 교통하는 것이다. 그래야 ‘육’은 어디에서 있어도 서로 교통하여 육신이 원하던 것도 이루게 된다.

29. 육체 교통보다 '정신 교통, 혼 교통, 영 교통'이다. 그러면 매일, 매시간 교통한다.
30. 인간의 <육체>는 '스마트폰의 몸체'와 같고, <마음·정신·생각과 혼과 영>은 '전파'와 같다. 전파가 있어야 스마트폰에 통화가 연결되어 통화할 수 있다. 성자는 우리의 '뇌'에 하신 말씀을 전달하신다. '뇌'에 전달받으면 느껴지고, 마음이 감동되어 알게 된다.
31. 가령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 자기의 몸과 같은 사람을 시켜 1억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보냈다 하자. 그 일만 보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시킨 본인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1억을 안 받았다면, 주는 자는 할 수 없으니 못 주고 끝난다.
32. 성자는 '영체'이시니, 재림 때도 땅에서 육신을 통해서 할 것은 그 육이 되는 구원자를 통해 행하시며 재림의 일을 하신다. 그런데 성자 본체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대 구원'도 못 이루고, '휴거'도 못 한다. /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재림 말씀>을 전하시며 먼저 땅에서 '육'을 휴거시키고, 그 육의 행위를 통해 '영'을 휴거시키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니 예비하지 못하게 되어 '영 휴거'까지도 못 하게 된다.
33.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신다. 땅은 육신을 가지고 이루는 세계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된 땅의 사랑하는 자를 그 육으로 삼고 그를 보내서, 그 육을 통해 뜻을 펴신다. 그 보낸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대 전체의 왕'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지구 세계 전체의 주권자'다.
34. 하나님도 성자도 '영'이시니,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행하셨다.
35. 재림 때 하나님과 성자가 그 몸으로 쓰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의 '신부'로서 '모태 역할'을 해 준다. 성자는 그로 말미암아 새 역사 새 생명을 낳으신다.
36.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은 많다. 그런데 부분적인 사랑을 한다.
37. 손잡는 사랑, 몸 닿는 사랑, 생각과 마음이 닿는 사랑만으로는 5년,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성자와의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8. '사랑'도 더 할 수 없는 단계까지 해야 사랑했다 한다. 산도 더 오를 수 없는 정상까지 올라야 그 산의 정상까지 올랐다고 한다. '성자 사랑'도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오르지 말고, 성자와 주가 만족할 때까지 행해라. 그래야 사랑을 이룬 것이다.
39. 성자는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를 보는 것이 성자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40. 구원자가 쓰는 육을 보는 것이 구원자를 본 것이다.
41. 전기는 반드시 발전소에서 고압선 변압기를 통해서 흐른다.
42. <성자>는 '발전소'요, <그 육>은 '고압선 변압기'이다.
43. 보낸 자를 본 것이 성자를 본 것이다.
44. 성자는 그 육을 통해 '사랑'도 하고, '심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하고, '사명'도 주고, '축복'도 주고, '준 것을 뺏는 것'도 행하신다.
45. 성자의 육은 공중에서 외줄을 타는 자의 외줄과 같다. 고로 그를 타고서 성자를 만나라.

<2014년 1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46. 사소한 세상 것으로 '성자'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주'를 잃어버리고 놓친다.
47. 성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자기가 쓰는 의자도 내 주지 않고, 맨 땅에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한다.
48. 제 할 일 다 하고 아쉬우면 성자와 주를 찾고, 힘들면 성자와 주를 찾는 자는 '신앙의 과일'이 거의 다 썩었고, 성한 부분이 조금 남아서 사는 자와 같다.
49. 메시아를 막연히 알고 믿는 자는 많다. 그러나 메시아의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모르고 믿고 따른다.
50. 메시아를 믿으면 무엇을 얻고, 자기 욕이 어떻게 되고,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믿어야 된다.
51. '진리'를 확실히 배우고, '성령'을 받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52. 주께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확실히 배워라. 그래야 알게 된다.
53. 베드로가 메시아를 온전히 깨달았듯이 깨닫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큰일을 못 한다.
54. 두루뭉술하게 깨닫는 자는 성자가 안 쓰신다. 그는 큰일을 못 한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한다.
55. 시대 사명자가 가장 험한 길을 간다. 시작부터 끝까지 험한 길을 간다. 이는 그가 가는 길이 '생명길'이라서 그러하고, '진정 사람들의 욕과 영을 구원하는 길'이라 그러하다.
56. 하나님의 역사를 막연히 믿고 따라오는 자는 '백성' 취급을 받고, 정말 제대로 알고 따르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시대 '주인공'이 되어 살게 된다.
57. 글을 쓰는 것도 자기가 깨달은 만큼 쓰게 되고, 말을 전하는 것도 자기가 깨닫고 아는 만큼 전하게 된다.
58. 알고 말하는 자는 '소리'부터 다르고, '행실'부터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다.
59. 한 번 떨어지면 죽는 곳에서는.. 그 누가 살리려고 손을 내밀어도 살기 위해서 그 손을 잡는다. 애인 손이 아니고, 낯선 사람의 손이라고 해서 안 잡겠느냐. 성자가 그때 필요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내미는 것이다. 구원자도 그러하다.
60.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사는 방법은, 살라고 내려 준 줄을 손으로 잡고, 그 줄을 자기 몸에 꽂꽂 감는 것이다. '절벽에서 살라고 내려 준 줄'은 <기도>다.
61. 변화될수록 안전하다.
62. 자기 영이 '신'같이 되어 '천국'에 가서 살기까지 변화다.
63. 주를 귀히 여기지 않고 건성으로 대하다가 실패했다. 주를 대하는 것을 보고, 주를 귀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
64. 성자도 주도 개인을 사랑해 주는 데 한계가 있다. 1차, 2차, 3차 계속 사랑해 줘도 그 사랑을 외면하면, 다른 생명을 찾아 구원해야 되기에 떠난다. 그때는 자기가 깨닫고 홀로 성자와 주를 찾아오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좋은 때가 왔다가 지나간 것이다.
65. 주를 맞고서 처음에서는 미쳐서 잘 모시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진다. 사람의 육체와 마음은 변화무쌍하다.

66. 온전히 변화되어서 자기를 ‘금’같이 만들어서, 온전한 상태에서 주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라.
67. 시대 사명자를 ‘주’라고 인정하면서, “내가 그 옆에 가면 잘 모시겠다.”라고 하던 자들이 있었다. 그들을 실제로 옆에 데리고 있어 봤다. 그러나 말만 잘 모시겠다고 하지, 자기 인격, 믿음, 성격 때문에 잘하지 못했다.
68. 먼저는 자기가 변화돼야 한다. 주가 안 보여도 잘 모시고, 잘 믿고, 행하는 자가 정말 믿을 만한 자요, 주가 옆에 있어도 잘할 자다.
69. 떨어져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서 못 하지만, 옆에 있으면 목숨 다해 모시고, 사랑하고, 천사같이 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역시 말뿐이다. 나를 속이지 말아라. 옆에 있으면 목숨 다해 잘하겠다고 하면서, 왜 떨어져 있을 때는 안 하느냐. 떨어져 있어도 잘하는 사람은 만나서 옆에 있어도 잘한다. 하는 자는 바로 지금 표가 나게 잘하고 있다.
70. 함정에 빠져 죽을 자를 살려 놓으니, 극적으로 자기를 구한 자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고로 다시는 구해 주지 않는다. 성자가 보낸 자에게 다 맡겼기에, 그가 ‘구원의 키’를 가지고 있다. 고로 보낸 자가 구해 주지 않으면, 성자도 어쩔 수 없다 하신다.
71. 성자는 보낸 자에게 모두 맡기셨다. 성자의 욕이 되는 자가 보고 썩은 자라고 하는데, 성자가 보고 썩지 않은 자라고 하겠느냐.
72. 구원자에게 ‘자기 구원’을 맡겨 놓고, 구원자에게 ‘자기 구원의 짐’을 짊어지고 오라고 하고, 같이 부축해 주고 밀어 주지 않고서 자기 할 일만 하는 자가 있다. 구원자는 ‘구원의 짐’이 무거워서 오다가 놓고 왔다. 이런 자가 누구인지 각자 기도해 봐라. 그런 자는 구원시켜 놔도 구원을 등한시하고 또 버린다. 고로 그런 자의 ‘구원의 짐’을 져 줄 수가 없다. 헛수고는 몸만 지치게 한다. 구원자는 구원받을 일을 하는 자의 것을 짊어지고 간다.
73. 자기 생명을 맡겨 놓고, 자기 생명을 맡긴 자를 등한시하면, 그 생명은 자동적으로 유산된다.
74. 구원자는 구원할 자를 자기 욕으로 보고 구원한다. 이것이 ‘구원자의 정신’이다.
75. 따르는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그로 말미암아 모두 전해 듣고 따른다.
76. ‘아는 것’은 본인의 수고, 노력, 연구, 책임 분담이다.

<2014년 1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끝난 것은 끝나게 된다.
2. 만일 ‘태양’이 다 타서 에너지가 다하면, 하나님은 다시 태양이 타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3. 태양이 다 타서 ‘태양의 에너지’가 끝났는데 다시 태양을 존재하게 하려면, 수백억 년 걸려서 또 창조해야 된다. 엔진같이 ‘태양’만 특별히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 ‘태양’과 함께 ‘지구’를 모두 한 기계같이 가동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태양이 죽으면, 지구도 죽는다.
4.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절대 법칙>이 있다.
5. ‘지구’도 모든 에너지가 끝나면, 사람이 늙으면 죽듯이 죽는다. 지구가 다시 살게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수십억 년을 들여서 처음과 같이 다시 지구를 창조해야 된다.

6. 모든 것이 그러하다. 끝나 버리면, 마치 사람이 늙으면 죽는 것같이 끝나게 되어 있다. 고로 존재하는 기간에 하라는 것이다.

7. 사람이 늙어서 죽었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같이 부모가 사랑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8. 끝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창조 법칙>으로서 <순리의 법칙>이다. 고로 하나님은 진행 중에는 ‘능력’도 ‘표적’도 더 행하시지만, 끝났을 때는 못 하신다.

9. ‘육신’은 있다가도 때가 되면 늙어서 사라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사람의 육신이 죽으면, ‘죽은 육신’을 다시 살려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 육신이 세상에서 살아 존재할 때 최고로 역사하신다. 고로 자기 생명을 귀히 관리하고, 제 명대로 쓰라.

10. 자기 ‘육신’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자기 ‘영’을 구원시키고 만들어라.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완성시켜라. 그러면 영원히 존재한다.

11. 하나님은 <순리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다고 하면서, 태양이 다 타서 에너지가 다해도 또 ‘능력’으로 타게 하신다고 믿고 산다. 만일 자기 아들이 있는데 스무 살에 아예 죽었으면, 다시 못 살린다. 아들이 다시 존재하게 하려면, 처음같이 다른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스무 살이 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도 태양이 다 타서 없어지면, 능력을 행하여 다시 태양이 타게 하지 않으신다. 처음같이 수소 덩어리를 수백억 년 동안 또 하나 창조하여 다시 태워야 된다는 것이다. 법칙의 하나님이시다.

12. <유형 세계>, 곧 <육의 세계>에는 끝이 있다. 끝이 있게 창조하셨다. 고로 <유형 세계의 것>은 언젠가는 모두 수명이 다하여 끝난다.

13. <순리의 하나님>이시다.

14.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능력이 있으니 무조건 다 해 주신다고 생각하며 믿고 사니, 될 것도 안 된다.

15. 존재하는 중에는 더 아름답게, 더 엄청나게, 더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인간도 살아 존재할 때는 살아 있으니, 그를 통해 엄청나게 이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 존재 세계도 끝나면 못 하고, 인간도 죽으면 육신이 없어서 못 한다. 다만 ‘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힘을 줄 수는 있다. 존재하는 기간이 끝나면, 더 웅장하게 기적으로 할 수 없다.

16. <사명>도 끝나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끝난 사람을 데리고는 더 웅장하게, 더 엄청나게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명>을 할 때는 더 크게, 더 엄청나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17. 고로 ‘자기 때’를 잡고, 무섭게 해야 된다!!

<2014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이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영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100% 할 일을 해 주셨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하는 기간 중에 못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의 육신을 ‘한계’를 정하고 창조하셨기에 <창조 법칙>에 따라서 인간이 존재할 때까지 한계를 두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께만 맡기고,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큰일 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탄 마귀가 인간에게 손을 못 대도록 최상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70%는 절대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다가 사망으로 간다.

20. 하나님의 손이 닿는 데까지 '전지전능'이다.

21.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기에 지옥까지 가게 된다.

22. <구원>도, <축복>도, <휴거>도, <모든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최고로 해 주신 것'과 '자기가 최고로 노력하고 책임분담을 하며 행한 것'을 합쳐서 받게 된다.

23. '항상 사랑하는 신랑이 다 해 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상대인 신부도 최고로 해야 된다. 그래야 둘이 합쳐져서 서로 '사랑'도 하고, '할 일'도 한다.

24.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도 남자, 혹은 여자 혼자서 하는 사랑으로는 사랑을 100% 만족하게 느낄 수 없다. 혼자서는 50%밖에 못 느끼고, 50%밖에 사랑을 못 이룬다. 상대도 같이 사랑해야 사랑을 100% 느끼고, 사랑이 100%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성자의 사랑이 커서 다 사랑해도 인간이 100%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100% 못 느끼고, 사랑을 100% 못 이룬다.

25. 상대는 가만히 있는데 혼자만 사랑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100%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사랑의 만족도 없다. 둘이 서로 100% 사랑하고 미쳐야 사랑을 느끼고 이룬다. <구원>도 <휴거>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는 이미 100% 다 해 주었다. 이제 너만 하면 된다.

26. <구원>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자를 보냈다고, 구원자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을 자'들과 같이 <구원>을 이뤄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 해 주셨다. 구원자도 다 해 주었다. 구원받을 자들이 못 해서, 자기가 못 해서 그같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27.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해도 구원을 이룬다면,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료가 있어도 집을 지어야 만들어지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해 주셔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행해야 된다.

28. 물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릇이 작으면, 그만큼만 받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미약한 상대'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

29. 꼭 많은 사람이 있어야만 만족한 것이 아니다.

30.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야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금잔을 가져야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금 그릇이 있어야 만족한다. 각각 다른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데, 그 '뇌'를 보고 자로 정확히 재듯 확인해 보면, 그 '마음의 만족의 기쁨'은 똑같다.

31.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만들어서 만족해라.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32. 모든 <유형 세계>는 한 번 지나가면 끝나게 창조되었다. <사람의 육체>도 한 번 죽으면 끝나게 되어 있고, <태양>도 수명까지 다 타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전능자라고 해서 다 타고 끝난 '태양'을 다시 타게 하지 못하신다. 다시 타게 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33. '별'들도 빛을 잃어 죽은 별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으시고 죽은 대로 그냥 놔두신다. 살리려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인간의 육체'도 죽으면 다른 생명이 다시 태어나듯이, '별'들도 때가 되면 죽고, 다른 별이 태어나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 법칙>을 정하시고 창조해 나가신다. '사람'이고 '별'이고 <육에 속한 유형 세계의 것>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게 하면서 뜻을 펴신다.

34. <하나님>은 ‘신’으로서 크게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며, 그에게서 창조된 <인간>은 ‘인간’으로서 작게 전지전능한 존재자로 창조하셨다. ‘태양’을 축소한 것은 ‘수소’다. 사람이 1년 동안 수소를 만들어서 다 태우고 쓰면, 그것으로 끝난다. 인간이 만들어도 수명이 다하면 끝난다는 것이다. 이미 그것은 다 끝났는데 다시 타라고 해서 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타게 하려면,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인간 확대 법칙>으로 그와 같이 행하신다.

35. <인간>은 작은 전능자로서 지구에다 ‘집’을 짓고 살고, <하나님>은 큰 전능자이시니 확대시켜 ‘우주’를 만들고, 거기에다 ‘지구’라는 집을 지으셨다.

36. 사람이 지은 집이 1000년이 가니, 오래되어 무너졌다. 그 집이 다시 존재하게 하려면, 힘들어도 다시 지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도 오래되어 죽어 쓰러지면, 하나님이 “다시 존재하라.” 해도 새것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다시 또 지구를 창조해야 존재하게 된다. ‘우주’와 ‘지구’는 <유형 세계>다. 고로 한 번 기한이 다하면 끝난다. ‘별’들도 죽으면, 나무가 다 타면 재로 끝나듯 빛을 잃고 어두운 별로 끝난다.

37.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구약 4000년 동안 역사해 오다가 때가 되니, 기한이 다 되어 <구약역사>는 끝났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라.” 하여 <구약역사>를 다시 존재시키지 않으셨다. 힘들지만 다시 새롭게 <신약역사>를 낳아 시작하셨다. 역시 신약 2000년 동안 역사해 오다가 때가 되니, 기한이 다 되어 <신약역사>는 끝이 났다. 마치 죽은 자녀는 그것으로 끝나게 하고 다시 새롭게 자녀를 낳아 기르듯, 하나님도 <신약역사>를 다시 살아나라고 하지 못하시고, <새 역사 사명자>를 뽑아서 새롭게 <성약역사>를 낳고 기르셨다.

38. 전능자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일하지 않으신다. 이미 끝난 역사를 다시 살려서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 늦어도 ‘새 사람, 새 역사’를 다시 낳아서 만들어 ‘새 일’을 하신다.

39. 우주가 때 되어 사람 죽듯이 죽으면, 수백억년 걸려 다시 창조해야 된다. 있을 때 귀히 써야 한다.

40. 자기 육신도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있을 때 귀히 써라!

41.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 ‘자기 때’를 확실히 알고, 그때를 무섭게 잡고,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온전히 만들어라. 그리고 어서 휴거되어라.

42. 자기 ‘육신’을 통해 자기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 ‘육’이 죽어도, 자기 ‘영’을 구원해 놓고 휴거시켜 놓았으니, 자기 ‘육의 모습’을 복사한 자기 ‘혼과 영’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다.

43. 자기 ‘육’이 행하는 대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의의 형체가 되어 자기 ‘영’에게 가서 그대로 형성된다.

44. <유형 세계>는 자기 육체를 중심해서 때가 되면 다 소멸된다.

45. ‘영’을 구원하여라. ‘영’을 휴거시켜라. 그러면 영원히 존재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46.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사망권에 처해 살게 된다.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47.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진행 중에는, 존재하는 중에는 더 이상적으로도 하시고, 더 못하게도 하신다. 그때 간구해야 된다. 끝나 버리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도 못 하신다.

48.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사진을 찍고 싶으면, 그때 사진이 찍고 싶으니, 카메라를 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비행기 안의 카메라를 가진 사람을 통해 찍어 주신다. 나중에 집에 와서 비행기에서 공중사진을 찍

고 싶으니 카메라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못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능자의 법칙>이다.

49. 때 지나면, 하나님도 못 한다. 인간도 못 한다. 고로 하나님은 ‘때’를 엄히 밝히고 행하신다.

50. 지난 시대의 것은 하나님도 못 하신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동시성 후대 역사>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구하도록 조건을 세워 행하게 하신다.

51. 그래서 성자는 진행 중에는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고 재촉하시며 “끝나 간다. 빨리해라. 못 하면 못 한 대로, 하면 한 대로 끝난다.” 하신다. 그러나 끝나면 “쉬려면 쉬어라. 끝났다.” 하신다.

52. ‘하루의 일’도 그때 못 하면, 그 날은 못 한다. 가령 그 날 새벽기도를 못 했으면, 그 날에는 못 한다. 그 날에 새벽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다음날이 돼야 다시 새벽이 돌아온다. 고로 그 날 일은 그 날 해야 된다. 그 시대의 일은 그 시대에 해야 된다.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진행 중에, 존재하는 기간 중에, 때가 왔을 때 자기 때에 해야 된다.

53.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 시대, 그 사람을 통해 못 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후대에 다른 시대, 다른 사람을 통해 하게 하신다.

54. 가령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같이 살다가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 하자. 다시 사랑하려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기 위해 다시 만들고 다시 길러야 된다. ‘신앙의 사람’도 그러하다. 성자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신앙으로, 말씀으로 낳고 길러야 된다. 다 만들면, 귀히 여기면서 쓰고 관리해야 된다.

55. 선생을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30년 정도는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히 쓴다.

56. 선생은 섭리역사를 펴기 전에 사생애 기간을 거치며 30여 년 동안 만들었고, 섭리역사를 펴면서 공생애 기간을 거치며 또 30년 정도를 만들면서 썼다.

57. 세상에서 쓰여지려 해도 엄청나게 만든다. 하늘나라에 가서 쓰여지려면, 죽을 때까지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특히 <휴거 때>에 자기 육신을 가지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자와 주를 사랑하며,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신부의 형체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귀히 쓰여진다.

58. 휴거 100선이 되게 만들고, 휴거 200선이 되게 만들고, 휴거 300선까지 완성하여라. 그리고 또 완성된 휴거를 이룬 자로서 계속 만들어라. 천국에 집도, 방도, 자기가 누릴 것도 더 만들어라.

59. <자기 육의 행위>로 ‘자기 영’도 만들고, ‘천국에서 거할 집’도 만들고, ‘천국에서 누릴 것’도 만드는 것이다.

60. 다 만들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속을 안 찌르고 하나 되어 ‘신부’로 살게 된다.

61. 제발 만들어라. 멋진 조각품 만들듯이, 6개월,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제발 좀 만들어라.

<2014년 1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62. 다이아몬드와 각종 보석을 발견한 상태의 원석 그대로 쓰면, 그 값이 가공해서 쓰는 것보다 10분의 1이다.

63. 원석을 가공하면, 원석보다 10배 더 가격이 비싸다. 신앙 세계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하면,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생명도 가르치고 만들어야 하고, 자기도 더 배우고 만들어야 된다.

64. 각종 작품이나 보물도 발견한 후에 더 손을 대서 만들어야 10배, 30배, 100배 더 가치 있다.
65. 월명동 지역도 손을 대고 개발하니까 1000배, 10000배 더 가치 있는 지역이 되었다.
66. 자기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만들고 변화시켜야 만 배, 10만 배, 100만 배 더 가치가 있게 되어, 가치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
67. 만들지 않으면 무가치다. 자기를 만들어라. 이것이 <재창조>다.
68.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서 구원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며 인생들을 구원하여 육을 통해 영혼을 변화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재창조>하여 천국에 가게 하셨다.
69. 자기를 매일 <재창조>하여라.
70.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는 <1차 창조>다. 그 창조물을 가지고 만들어서 쓰는 것이 <2차 창조>다. 예를 들어 '나무'는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상태는 <1차 창조>다. 이 나무를 베서 집을 짓는 것이 <2차 창조>, 곧 <재창조>다.
71. 하나님은 인간을 1차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육의 행실로 자기 영혼을 '천국의 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72. 하나님은 자료를 주셨다. 인간이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좋게, 자기 좋게 만드는 것이니라.
73. 이 세상의 건물도, 차도, 비행기도, 민족도 처음부터 있었느냐. 무(無)에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유(有)가 되었느니라.
74. 없는 것도 만들면 있느니라.
75. 없다고 걱정 말고 만들어라.
76. 찾을 것을 찾고, 만들 것을 만들어라.
77.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재창조>하여 만들어라. 인간은 '제2의 창조자'다.
78. 만들지 않고 그냥 쓰는 사람은 미개한 원시인이다.
79. '나무와 식물'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다. 만들지 않고 그냥 쓰면, 나무를 입고 식물을 입고 다니는 것이다.
80. 자기도 만들어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81. 자기 행위로 만들어진다. 만드는 대로 육도 그 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혼도 영도 그 차원의 세계로 간다.
82. 매일 '만들기'와 '쓰기'다.
83. 먼저 '마음'을 잘 만들고, 그다음에 '몸'으로 행하여 <실체>를 만드는 것이다.
84. 자기 차원에서 만들면, 만들어도 그 차원의 존재물이니라.
8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을 받아 그 차원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86. 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자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87. 사탄은 인간이 하늘나라의 형상으로 의롭게 만드는 것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방해한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만들어라.
88. 자기를 만든 후에는 지혜롭게 쓰면 된다.
89. 만드는 가치, 쓰는 가치다. 만드는 보람, 쓰는 보람이다.
90. 육적으로 만들어서 육적으로 쓰면, 얼마 못 쓰고 끝난다. 그 가치와 보람도 육에서 끝난다. 영적으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써야 영원하다.

<2014년 1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91.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시 때는 <육>을 쓰고 행하고, 꿈에는 <혼>을 쓰고 행한다. 상황만 다르지, 실상은 같다.
92. 가령 생시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하면, 꿈에서는 그 마음이 <혼>을 쓰고 열심히 한다. 다만 혼계와 영계에서는 행하는 환경과 사건들이 비유나 상징이기에 다르다.
93. 육계에서도 내가 해야 상대도 같이 하고, 혼계에서도 내가 해야 상대도 같이 한다.
94. 육계에서 승리하면, 혼계에서도 승리한다. 육계에서 실패하면, 혼계에서도 실패한다.
95. 육계에서 이기지 못했는데, 혼계에서 이기는 경우는 없다.
96. 육계의 반응이 혼계의 반응이다.
97.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니, 누구든지 땅에서 살 때 천국을 이뤄야 된다.
98. 육신이 마음과 함께 행한 것은 그 혼도 행한 것이다. 고로 그 영에게 모든 의가 다 가서 영도 변화된다.
99. 육신은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눈으로 보겠느냐. 마음과 정신이 혼을 쓰고서 활동하니, 혼이 보는 것을 본 것이다. 육신 세계에서는 눈으로 본 것이 뇌로 전달되어서 뇌가 기억한다.
100. 혼의 세계에서 혼이 본 것이 뇌로 전달되어 육신이 기억하게 된다.
101.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뇌가 굳어 있고 잠을 자고 있으면, 봐도 뇌로 전달이 안 되어 기억나지 않는다.
102. <뇌의 감각 상태>는 ‘마음·정신·생각’을 보면 안다.
103. 정신이 확실하고 생각이 확실하면, 육계의 것도 영계의 것도 확실하게 생각나고 기억난다.
104. 육계의 것이나 영계의 것이나 기억하려고 집중해야 기억을 잘하게 된다.
105. 기억을 안 하려 하면, 기억이 안 난다.
106. 꼭 기억하려고 해야 기억난다.

107. 가령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을 꼭 암기하려고 해야 암기가 되어 기억이 확실하다.
108. 신앙생활도 육신 가지고 하니, ‘육’을 알아야 된다.
109. ‘마음, 정신, 생각, 사고, 행동’이 흐리멍덩하고 약한 자는 신앙생활을 해도 흐리멍덩하게 하고 약하다.
110. 환경도, 물건도, 음식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쓰거나 그대로 먹으면 마음에 안 든다. 더 좋게 만들면 10배, 100배, 1000배 더 좋아진다. 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혼도, 영도 만들어라. 그러면 월명동같이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만 배, 10만 배, 100만 배 더 좋아진다. 천국에 못 갈 자라도 성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의의 행실로 육과 마음과 혼과 영을 만들면, 그 혼과 영이 천국에 가게 된다.
111. 자기 육을 통해 마음, 혼, 영을 만들지 않고서 천국에 간 자는 없다.
112. 매일 ‘성자와 주의 말씀’으로 자기 <육, 마음, 혼, 영>을 만드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113. ‘마음·정신·생각’이 ‘육체의 힘’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2014년 1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으로 보아라.
2. 눈으로 봐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안 보인다.
3. 생각과 인식이 잘못됐을 때는 눈으로 봐도 잘못된 인식대로 보인다.
4. ‘혼의 생각’으로 보아라.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생각을 전달받아 ‘성자의 생각’으로 보고 인식하여라.
5. <인식>은 ‘결정’이다.
6. ‘인식했다.’ 함은 ‘뇌와 마음에 메모리 되었다’ 함이다.
7. ‘인식’이란, ‘뇌와 마음에서 결정한 단계’다. 고로 그 결정을 바꾸어 그릇된 인식을 없애기 전에는 ‘육의 눈’으로 봐도 제대로 안 보인다.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짧은 것도 길게 보이고, 긴 것도 짧게 보이고, 구부러진 것도 곧게 보인다.
8. 그릇 인식된 상태에서 교육하면, 교육이 안 들어간다.
9. 자기 결정이 자기 운명을 좌우한다. 곧 자기 인식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 고로 인식을 잘해야 된다.
10. 육으로 못 보는 것은 ‘생각의 눈’으로 보아라.
11. 일평생 꿀뚜기를 먹고 살아도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꿀뚜기를 조개로 알고 산다.
12. <낙원>을 <천국>으로 인식하고 믿는 자는 평생 낙원을 천국으로 알고 믿고 산다.
13. <천국>에 못 가 본 자는 <낙원>을 최고 좋은 천국으로 안다.
14. 달동네에 살던 자가 해동네에서 살게 되면, 그곳을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천국으로 알고 산다. 부자가 되어 더 좋은 별장과 전원주택에서 살게 되면, 그제야 해동네가 중간 동네라는 것을 알게 된다.

15. <구약>은 ‘최하 동네’, <신약>은 ‘중간 동네’, <성약>은 ‘최고 좋은 동네’다.
16. <구약>은 ‘선영계’, <신약>은 ‘낙원 세계’, <성약>은 ‘천국의 황금성 세계’다.
17. 같은 천국 안에서도 수백, 수천 가지의 차원의 세계로 구분되어 있다. 제일 아래 선영계가 있고, 그 위에 낙원이 있고, 그 위에 천국 황금성이 있다고 생각해라.
18. 한 나라의 수도권 안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수천 단계로 삶의 차원이 각각 다르다.
19. <천국>의 최고 중심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하시는 세계가 있고, → 그다음에 최고 사랑의 뜻을 이루는 성약역사에 와서 휴거된 영들이 신부로서 거하는 ‘신부성 천국’이 있고, → 그다음에 신약역사에서 구원받은 영들이 거하는 ‘낙원급 천국’이 있다. / 천국은 수천만 층이다.
20. 한 집에 사는 형제들도 부모를 중심으로 그 삶의 터전이 다르다. 자기 경제 실력대로, 자기 차원대로 다른 위치에서 산다.
21. 전능자 하나님도 인생들이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주어 차원대로 살게 하신다.
22. 성자와 일체 되어 붙어 살아도, 그 안에서도 또 ‘각자 행위의 차원’대로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나뉘어 살게 된다.
23. 차원과 위치가 쪼개져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24. 신이 되려면, <전체>를 봐야 된다.
25. 어떻게 방에 앉아서 지구 세상 전체를 다 돌아다니며 보겠느냐. 기도하면서 영계에 들어가서 ‘생각’으로 보고, ‘혼’으로 보아라. ‘혼’은 우주 전체도 보고, 영계도 보고, 땅속도 본다.
26. 어떻게 사람을 다 겪어 보면서, 살아 보면서 보겠느냐. ‘생각’으로 보아라. ‘혼’으로 보아라.
27. ‘생각’으로 성자와 대화하고, ‘생각’으로 성자를 보아라.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다.
28. 속이려는 자는 ‘행위’까지 속여서 행하니, 눈으로 봐도 모르고, 그 말을 들어도 모른다. 고로 ‘생각’으로 꿰뚫어 보아라.
29. 지도자들도 따르는 자들이 속이는지,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보아라. 생각의 주인은 ‘혼체’다.
30. 상대의 말이 옳다 해도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다. 판단하고 성자에게 묻고 행해라.
31. 세상의 옳은 길도 옳다고 하며 가다 보면, <천국 길>도 못 가고 <자기 인생 길>도 못 간다.
32. 상대는 옳다고 단언해도 확인하기 전에는 가지 말아라. 자기 ‘뇌 차원’대로 따지고 계산하고 옳다 하니, 착오가 많다.
33. 자기 ‘뇌 차원’대로 판단하고 옳다고 주장한다.
34.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보고도 크다고 말한다. 어른이 보면 작다고 말한다.
35. 큰 것을 많이 본 사람은 누가 무엇을 보고 크다고 해도 큰 것만 보고 살았으니, 작다 한다. 전체를 보고 계산하고

판단해라.

36. 어렸을 때는 큰 바위로 생각했으나, 커서 보면 작은 돌이다.

37. ‘마음’이 작고, ‘생각’이 작고, ‘뇌 차원’이 낮은 자는 큰일을 못 한다.

38.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어렸을 때 짝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는 천하의 미인 같았지만, ‘뇌 차원, 뇌 지능’이 높아진 후 다시 생각해 보니, 시골 산골짜기의 재래식 화장실 같지 않느냐.

<2014년 1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네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 네 ‘몸’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신다.

2.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을 안 보이려고 피해 있었다. 결국 책망받고 심판받았다.

3.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거룩한 산 호렙에 가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하고 가르쳐 주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낼 것을 말씀하셨다. (출 3장)

4.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니, 마치 방에서 신을 벗듯이 신을 벗어라.’ 함이다.

5. 영적으로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중심을 버려라.’ 함이다.

6. 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더러움을 버려라. 마음과 행위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 함이다.

7.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함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한 곳이고 거하는 곳이니, 다른 곳과 구분되게 정결하게 하라.’ 함이다.

8. ‘신을 벗어라.’ 함은 ‘하나님이 계시니, 달리 생각하고 행해라.’ 함이다.

9.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온 사람에게 “이곳은 방이니, 바깥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한다.

10.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니, 호렙 산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셨다. 이는 ‘거룩함, 깨끗함’을 말했다.

11. 성자에게 ‘거룩함’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단어로는 통쾌하게 설명할 만한 단어가 없다.” 하셨다. “그럼 하늘나라 단어로 말씀해 주세요.” 하니, “거룩한 곳이란, 신성한 장소다. 곧 전능자가 거닐고 거하는 곳이다.” 하셨다.

12. 월명동 자연성전도 거룩한 곳이다. 신성한 곳이다. 삼위일체가 거니시고 거하시는 곳이다. 고로 ‘전능자 세 분의 불꽃같은 눈’이 CCTV가 되어서 밤낮 돌아간다. ‘행위’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반영하여, 마음먹고 생각한 것까지 다 ‘실제 행위’로 보고 판단하신다.

13.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 순간 행한 대로 갚아 주는 것이 아니다. 회개할 기간을 주시는데, 실상 죄를 짓는 순간부터 형벌 기간에 들어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정한 날에 사람을 시켜서 고하게 하시고, 혹은 자기가 직접 고하도록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리고 행위대로 조건을 세워 올라오게 하신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치 CCTV를 설치해 놓고 밤낮 지켜보듯 ‘전지전능하신 불꽃같은 눈’으로 날마다 살피신다.

15.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까지 ‘실제 행위’로 보신다. ‘생각’으로 욕도 행하고, 혼도 영도 행하기 때문이다.

16. 욕의 뇌에서 생각한 것을 혼이 그대로 행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그 실체를 녹화해 영상으로 보신다.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냥 행하지 말고, 꼭 분별하고 확인하고 행해라.

2. 어느 조개에 진주가 들어 있는지 모르니, 1차로 조개를 까 보고 그속에 진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그다음에 진주가 있는 조개는 받아들이고, 없는 조개는 없다고 불신하기다.

3. 확인한 후에 결정이다.

4. 사기꾼은 근거도 없이 사기를 친다. 거짓으로 근거를 만들어 보여 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다. 고로 꼭 확인해라.

5. ‘확인하는 것’이 신이다.

6. ‘분별하는 것’이 신이다.

7. 먼저는 발견하기다. 그다음에 분별하고 판단하기다. 그다음에 ‘버리기’, 혹은 ‘취하기’다.

8. 동서남북 100% 확인하기다.

9. 가령 금이 박힌 돌을 주웠다 하자. 그런데 돌 외부를 아무리 봐도 금이 없어서 버렸다. 그 옆의 사람이 그 돌을 다시 주워서 깨 보았다. 그러자 돌 속에 금이 꼭 차 있었다. 이같이 100% 확인하기다.

10. 어린아이같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보고 들었으면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기다.

11. 신이 되려면, 보고 들은 다음에 분별하고 판단하기다. 100% 확인하면, 100% 알게 된다.

12. 뇌에는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뇌의 구조’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고 듣기만 하고 ‘분별하는 뇌, 확인하는 뇌, 판단하는 뇌’를 써먹지 않는다. 고로 문제가 생기고,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본다.

13. 사기꾼은 100% 포장한다.

14. 포장하여 속이 안 보이니, ‘냄새’로 맡아라. ‘생각’으로 꿰뚫어 보아라. 자기 혼체로 보면 다 보인다. <혼체>는 ‘자기의 신’이다. 고로 육체 정도는 흰히 알게 된다.

15. 음식도 아무리 눈에 좋게 보이고, 귀에 좋게 들려도 확인하고 먹기다.

16. 물건도 아무리 눈에 좋게 보이고, 귀에 좋게 들려도 확인하고 사고 취하기다.

17. 보고 들은 후에는 네 특기대로 분석해라.

18. 작은 것인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해서 거짓으로 불려서 말하니, 들었으면 확인하기다.

19. 좋은 것은 숨기고 안 팔고, 나쁜 것은 좋게 포장하여 뜯어보지 못 하게 하고 팔려고 한다.

20. 확인해 보면, 보고 들은 것과는 90% 다르다.

21. ‘쪼개는 것’이 <확인, 분별>이다. 분석하는 것’이 <확인, 분별>이다.

22. 지옥도 천국도 확인하여라.

23. 여자라고 해서 7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남자였다. 확인을 안 한 것이다.

24. 선생 이름의 ‘석(析)’자는 ‘분석 석, 분별 석, 확인 석’이다. 분별의 기계다. 석(析)을 걸고 다녀라.

<2014년 1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여유 있게 하려면, 꾸준히 해라.

2. 꾸준히 해야 일하면서도 쉬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3. 할 일 다 하면서 가려면, 일할 시간에 놀지 말아라.

4. <기도>도 <모든 일>도 급하다고 안 해 버릇하면, 매일 급하니 결국 안 해진다.

5. 일이 많으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라. 하나는 육적으로, 하나는 혼적·영적으로 나눠서 해라.

6. 일이 밀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는 시간이 많다.

7. 뜻이 아니면, 성자는 그 사람의 수준만큼만 대해 주고 그냥 간다.

8. 서로 고마워해라. 감사해라. 찾고 깨달으면, 피차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

9. ‘자기’를 깨달아야 ‘형제’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다.

10. 세상에서 명예를 휘날리며 산 사람이 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 지도자의 영이 지옥에 갔다면, 따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세상에 가서 그 실상을 보고 확인한 사람은 그가 천국에 갔다 해도, 좋은 영의 세상에 갔다 해도 영원히 안 믿는다. 본 사람은 안다. 아는 자가 왕이다.

11. 알고 보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아라.

12. ‘지옥·무저갱·음부’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천국·낙원·선영계’는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13. <지옥>은 가장 가기 쉬운 길이다. 고로 수많은 육들이 ‘지옥의 삶’을 살고, 수많은 영들이 ‘지옥’으로 간다.

14. <천국>은 가기 어렵다. 고로 가는 자가 적다. 자기가 행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다.

15. 사람들은 “지옥은 너무 많은 자들이 가니, 그곳은 좁아서 나는 들어갈 곳이 없겠어요. 가더라도 밖에서 살겠어요.” 하며, 요행을 기다리는 말을 하기도 한다. 좁은 지구 세상만 보고 살아서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지구보다 수백 배 더 크다. 지옥에는 비어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16. <사탄>은 그 ‘큰 지옥’을 다 채우려 계획하고, 사람들을 꾀고 유혹하고 속이며 행한다. <하나님>은 그 ‘큰 천국’을 다 채우려 계획하시고, 모든 생명들이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와서 살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17. 사탄이 그렇게 지옥을 꽉 채우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을 들어주신다면, 사탄들의 배를 다 갈라서 생선같이 벌려 놓아 지옥을 채우게 하고 말 것이다.

18. <천국>은 예상대로 안 채워지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놓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넓게 쓰게 해 주신다.

19. 목자는 어느 시간만 양 떼를 살피면 안 된다. 틈만 있으면 이리와 사자와 야수들이 양을 잡아가니, 항상 양 떼 옆에 있어야 된다.

20. 양 틈에 숨어 있다가 만일 이리와 사자와 야수들이 나타나면, 양 사이에서 총을 겨누다가 쏘 죽여라. 그러면 양들이 총질을 하는 줄 알고, 소문나서 다시는 안 온다.

21. 양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원형으로 사방에 함정을 파 놓아라.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러 온 야수가 함정에 빠지면 거기서 못 나오게 하여라. 양을 잡아먹으러 온 죄로 빼만 남고 가족만 남도록 야수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해 주여라.

22. ‘참목자’는 연구한다. 야수들이 온 산의 가시덤불 속에 숨어 있으니, 온 산에 철조망을 치고 불을 질러라.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야수들이 바비큐가 되면, 더 이상 양을 사냥하지 못한다. 산은 가시덤불들이 모두 불에 탔으니, 세월이 가면 좋은 나무들이 자라서 밀림이 된다. 만일 그 산에 또 야수들이 생기면, 다 큰 양들을 시켜서 야수가 새끼일 때 짓밟아 없애라.

<2014년 1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깨달는 것이 보물이다.

2. 깨달는 것이 가치다.

3. 깨달는 것이 재물이며, 자본이다.

4. 깨달는 것이 보화라고 했다. 깨달고 행하면 얻으니, 깨달기만 해도 이미 얻은 것과 같다.

5.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 깨달는 것의 차이는 크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손을 잡은 정도로만 느껴지고, 깨달은 것은 사랑하는 연인과 직접 사랑한 것같이 느껴진다.

6. 지식으로 배우는 것과 깨달는 것이 차원이 다른 이유가 있다. 지식으로 배운 것은 육신이 배워서 머리로 아는 차원이고, 깨달은 것은 자기 혼과 영이 아는 차원이다. 혼과 영이 아니, 혼과 영이 육과 함께 행한다. 고로 실천하기가 100배 더 쉽고, 심령도 강하고 기쁘다.

7. 가정에서도 큰 할 일을 놓고, 어린 아들딸이 아는 것과 어른인 부모가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행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육이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과 혼과 영이 알고 깨달는 것은 다르다.

8.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할 일을 놓고 깨달아 아는 것과 따르는 자들이 아는 것은 행하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지도자는 행할 능력과 힘이 있어서 즉시라도 행하지만, 따르는 자들은 의견을 말해 줄 뿐이다.

9. 하나님은 시대 구원자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시대의 할 일을 말씀해 주어, 모든 인생들에게 시대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10.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그 일의 지도자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
11. 주와 같이 있으면, 같이 빛난다.
12. 귀한 것과 같이 있으면, 그보다 못한 것도 같이 빛난다.
13. 계산을 잘하면 얻고, 계산을 못하면 잃는다.
14. 가령 어떤 작품이 빛나고 찬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과 같이 있으면,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더 빛나고 가치 있게 보인다.
15. 도시의 집은 가치가 있다. 이는 그 도시와 함께 쓰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다.
16. 외롭게 한 별판에 집만 있으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17. 귀한 곳에 있어야 귀한 곳과 같이 빛이 나고 가치가 있다.
18. 월명동 낙타바위, 주암바위, 고래바위 등 모두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개발되어 귀하 쓰는 장소에 있으니, 자연성전과 같이 빛나고, 같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19. 바위만 달랑 떨어져 있으면, 누가 그것을 보러 오겠느냐. 무가치다.
20.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미 만들고, 태양같이 빛나는 사명을 주어서 개발된 자, 곧 구원자 앞에 있으니, 자기도 같이 개발하여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달랑 자기만 떨어져 있으면, 개발한다 해도 별 가치가 없다.
21. 월명동에 붙어 있어서 같이 개발한 것이 월명동 자연성전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만큼 같이 빛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가까이 붙어 있어야 차원을 높이실 때 자기도 같이 차원을 높여 빛나고 가치 있는 인간 보물이 된다.
22. 사람이고, 지역이고, 건물이고, 핵심에 가까이 있어야 핵심과 함께 빛나는 것이다.
23. 개발된 도시에 상점이나 집이 있으면, 도시와 함께 상점과 집도 같이 차원을 높여 보물이 되고 가치가 더 높아진다. 성자와 주가 보물이다. 성자와 주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자기도 해같이 빛난다.
24. 성자와 주와 가까이 있어야 빛난다. 달랑 혼자 있으면, 개발해도 자기가 가진 가치밖에 빛이 안 난다.
25. 가령 금값인 땅 옆에 땅이 있어야 같이 금값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자는 천하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성자 옆에 있으면, 그다음 가치를 갖게 된다. 성자와 가까이 있는 자가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된 자다.
26. 월명동 주관권에서 200m 떨어졌는지, 300m 떨어졌는지, 400m 떨어졌는지, 500m 떨어졌는지, 600m 떨어졌는지, 700m 떨어졌는지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 핵심지에 가까이 있어야 보물이다. 가치가 있다.
27. 핵심적인 곳에서 합당한 위치에 있어서 최고로 빛난다.
28. 지구는 태양에서 최고로 합당한 거리에 있다. 고로 별들 중에서 최고 '생명의 빛'을 발한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안에 최고로 합당한 위치에 있는 자가 최고 '생명의 빛'을 발한다.

30. 성자와 주와 일체 된 자는 인생 보물이다. 최고의 가치다.
31. 혼자 달랑 떨어져 있는 것은 자체 가치로서 보는 자가 별로 없다. 성자와 주는 일생 동안 빛나고, 영원히 빛난다.
32. 귀한 것 옆에 있으니, 같이 귀한 취급을 받고 빛이 나게 된다.
33. 첫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가까이 있어야 하고 / 둘째, 자기도 개발하면 같이 빛난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니, 더욱 빛이 난다.
35. 수석도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값이 나간다. 사람도 그러하다. 계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성자 구상을 자세 히 듣고 해야 된다. 월명동도 그러했고, 모든 작품도 그러했다. 성자 구상대로 안 했으면, 만들어도 값어치가 없다. 사 람도 잘 개발해야 된다. 자기 식으로 하는 자들은 안 된다. 가치 없이 만드는 것이다. 성자께, 주께 맡겨라. 이것이 최 고의 도(道)다. 성자와 주 식대로 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신다. 조은이도 선생이 만들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만들어 쓴 다.
36. 큰 것에 관한 것을 깨달을 때, 큰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37. 깨달을 때, 1억 천만금을 얻게 된다.
38. 성자는 무엇을 주실 때, 그것을 얻도록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우쳐 주신다.
39. 깨닫도록 기도를 많이 해라. 그래야 뇌가 풀려서 성자가 생각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영감을 주신다.

<2014년 2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악한 자들과 사탄은 간교하여 <좋은 것>은 버리게 하고, <나쁜 것>은 가지고 가게 한다. 제대로 분별하고, 확인하 고, 판단하여 속지 말아라. 고로 성자가 주신 것을 뺏기지 말아라.
2. 성자가 축복을 주시면, 악한 자들과 사탄은 유혹하여 속이고 뺏으려 한다.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여 얻은 것을 뺏기지 말아라.
3.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는 뇌가 발달하여 보고 듣는 데는 뇌를 잘 쓰면서 산다. 그러나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 곧 ‘분별하는 뇌, 확인하는 뇌’는 발달되지 못하여 ‘분별의 능력’이 약하다.
4. 분별을 잘하도록 ‘분별의 뇌’를 계획적으로 발달시켜라.
5. 보고 들은 대로 그냥 영성하게 행하니 화도 받고, 해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사고도 나는 등 각종 문제가 생긴다.
6. 무엇을 보고 들었으면 ‘분별하고 분석하는 뇌’를 100% 사용하고 가동시켜 전문적으로 확인하고 쪼개야 된다.
7. 사람들은 ‘보고 듣는 데’는 뇌 회전이 빠르다. 그러나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데’는 약하다.
8. ‘보고 듣는 것’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단계’에서 최고로 문제 가 일어난다.
9. ‘분별의 뇌’가 굳으면, 뇌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뇌>가 되어서 판단을 못 한다.
10. ‘분별의 뇌’를 쓰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실패하고, 물질적 시간적 손해를 보고, 육적 영적인 해를 받게 된다.

11. 수고의 대가대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육적·혼적·영적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는 뇌를 발달시켜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12.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행해 버리는 것이 습관이 된 굳은 뇌를 풀고, 깨우고, 살리고, 발달시켜라.
13. 보고 들은 대로 행하지 말고, ‘분별하는 뇌’를 사용하여 꼭 확인하고 나서 행해라.
14. 악인들과 악평자들은 자기가 악한 대로 확인하지 않고 말한다.
15. 악평하는 말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악평을 보고 들었어도 ‘뇌 분석 기계’로 꼭 분석하고,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하기다.
16. 시간이 들어도, 돈이 들어도, 경비가 들어도 확인해야 할 것은 꼭 100%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행하기다. 확인하지 않고 그릇 행하면, 그로 인한 ‘해’는 자기가 다 받게 된다.
17. ‘뇌 차원’이 낮으면 분별을 못 하고, 판단이 흐리고, 분석을 못 하고, 쪼개지 못한다. 시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성자의 차원으로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확인해라.
18. 인간 수준에서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다. 세상 재판관이 판단하더라도 인간 수준에서 판단하면, 어느 한쪽이 억울하게 결정되는 일이 많다. 어느 한쪽이 억울하게 결정되면, 하나님은 다시 판단하여 심판하신다. 땅에서 판단했어도 하나님이 다시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19.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과 성자의 분석으로 하는 판단이 100% 온전하고 완전하다.
20. 주가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면 항상 실수가 따른다.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로 착오가 있다. 판단을 주께 맡겨라.
21.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받아라!

<2014년 2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첫사랑을 잃으면, ‘사랑하는 자’를 뺏긴다.
2. 첫사랑을 잃으면, ‘마음’을 뺏긴다. 그러다 ‘몸’도 뺏긴다. 그러다 ‘성자’도, ‘주’도 뺏긴다.
3. 성자와 주를 뺏기면, 신앙을 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다.
4.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사랑하는 자’를 다시 뺏는다.
5. 처음에는 열렬하다가도 가다 보면 어느새 <첫사랑>이 식는다.
6. 사람의 심리를 알아라.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거나, 원하던 사람을 얻으면, 처음에는 거기에 빠져서 미쳐서 좋아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좋아하고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는다.
7.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를 위하여 만났어도 계속 보고 만나다 보면, 처음 불갈던 마음이 식는다.
8. 그렇게 ‘좋은 옷’ 사기를 위하여 새 옷을 샀어도 계속 입다 보면, 새것도 옛것이 되니 슬슬 지겨워지고 안 입고 싶어진다.

9. 그렇게 '사명' 받기를 원하여 사명을 받았어도 계속 사명을 하다 보면, 권태에 빠져서 사명을 놓고 싶어 한다.
10. 인생은 '반복되는 삶'이다. 고로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그것을 쓰고 누리면서 살다 보면, 이미 쓰고 겪어 봤기에 '호기심'도 사라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권태'가 온다. 고로 귀히 보던 것도 보통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안 하게 된다.
11. '원하던 것'을 얻고 쓰다 보면, 또 '원하던 사람'을 얻고 살다 보면, 처음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도 식어지고 별로로 생각된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생각도 <처음 사랑>이 식어 버린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향해서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불같이 사랑하면서 평생 식지 않고 사랑할 것같이 맹세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식어 버리고, '의욕'을 잃고, '호기심'도 잃고, '삶의 희망'도 약해진다.
13. <첫사랑>이 식으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14. <첫사랑>이 식고 힘들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도 잘 안 된다.
15. <첫사랑>이 식은 자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뺏긴 자다.
16. <첫사랑>을 찾지 못하면, 힘이 없어서 '휴거'를 이루지 못한다.
17. <성자 사랑의 해>의 핵은 '첫사랑의 불'을 뜨겁게 붙여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힘이 솟아나 '휴거'를 이루고, '완성급 300선 휴거'까지 도달하게 된다.
18. '첫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지 않고서는 1년도 지겹고 지루해서 희망과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
19.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진다. 자꾸 새로운 나무를 넣고 또 넣어야 불이 안 꺼진다.
20. '성자와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자꾸 기도하고 성자와 대화하며 '새로운 것'을 얻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21. 하던 것만 반복하면 지루하다. 발전도 없다. 호기심도 없어진다. 뜨거운 열정도 식는다. 고로 심리적으로 <판>이 식고 <첫사랑>이 식는다.
22. 시간이 지나면 '희망의 열'이 식기 마련이다.
23. <새것>을 구하고 찾고 얻어야 '새 희망'이 솟고, '첫사랑의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른다.
24. 인생 삶은 '반복의 삶'이다. 고로 사랑하는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하여 껴안고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오고, <한계 상황>이 오고, <첫사랑>이 식어 버린다. 자꾸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해야 된다.
25. 섭리사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펴면서,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고 있다. <성령집회 역사>, <말씀의 역사>, <잠언의 역사> 등 새롭게 계속 차원을 높여 나가니, '성자 사랑'과 함께 '섭리역사'도 불이 안 꺼지고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그로 인해 '휴거의 불'이 타오르게 되었다. 그러니 말씀집회, 성령집회에 꼭 참여하여 '첫사랑의 불'을 붙여라.
26. <전도>와 <관리>에 불을 붙이고, 입에서 불이 나오게 <시대 말씀>을 증거하며 외쳐야 '성자와의 첫사랑'에 불이 붙어 보다 빨리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27. 생활 습관 하나부터, 얼굴 표정 하나부터, 자세 하나부터, 성자를 대하는 것부터, 주를 대하는 것부터, 말씀을 대하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새롭게 하여라. 그러면 불이 붙는다.
28. 회사도 자꾸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으면, <매출의 판>이 식는다. 시대를 앞서 나가며 '새로운 아이템'을 내야 <매출의 불>이 활활 타고, <회사 분위기>도 활활 타오른다.
29. 무엇을 하든지 자꾸 '연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개발'을 해라. 그래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진다.
30. 지도자라면, 아이큐를 높여라. 150까지 높여라. 네 생각으로는 못 높인다. '성자의 생각'을 받아라. 그리고 자꾸 '연구'해라.
31. 아무리 열을 내도 <첫사랑>이 식는 이유는 뇌가 굳어서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꾸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찾지 못하여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펴지 못함으로 <첫사랑>이 식는 것이다.
32. 올해는 <성자 사랑의 해>다.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첫사랑의 불'이 붙는다.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3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무한하게 가지고 계신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 수백 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행하는 조건'을 세워야 주신다. <첫사랑>이 식지 않고, 자꾸 하고, 끝까지 해야 주신다.
34. <기도 이벤트>와 <각종 이벤트>를 새롭게 해라.
35. 새로운 것을 행하지 않으니, 안타깝게 얻지 못하는 것이다.
36. 하나님과 성자가 주실 것이 있는데, 그냥 두고 육신이 죽으면 너무 아깝다. 계속 연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조건을 세우고, 계속 성자를 사랑하며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러면 주신다.
37. 새롭게 해라. 그리함으로 '첫사랑의 불'을 붙여라.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섭리사도 '새 희망'과 '새 힘'이 솟는다.
38. 새롭게 하지 않고 그냥 가면, 불이 다 꺼지고 냉랭하여 '성자와 사랑할 힘'이 없다.
39. 사랑으로 휴거되는 것인데, '사랑할 힘'이 없으면 <휴거>도 안 된다.
40. 올해 '첫사랑의 불'이 붙으려면, 새로운 것을 구하여 받고, 새롭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휴거>도 한 차원 더 높게 된다.
41. 올해를 놓치면, '큰 기회'를 놓친다. 이 말을 깨달아라.
42. 올해가 왜 <성자 사랑의 해>인지, 근본을 깨달아라.
43. 가르쳐 줘서 알면, 지식으로 알게 되니 마음에 불이 붙지 않는다.
44. 자기가 말씀을 듣고 성자에게 기도하여 깨달아 알게 되면, 마음에 불이 붙어 가슴이 뜨거워져 목숨 걸고 하고 싶게 된다.
45.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라. 그리함으로 '깨달음의 불'을 붙여라. 그리고 제대로 깨달아 <성자 사랑의 해>를 놓치지

말고 ‘성자 사랑의 불’을 붙여라. ‘첫사랑의 불’을 붙여라.

46. 깨달아야 ‘확신’이 온다. 고로 목숨 걸고 행하게 된다.

47. 말씀은 가르쳐 주었으니, 마음에 불이 붙어 깨닫도록 기도해라.

48. 진정 휴거되어 성자가 거하는 <천국 황금성>에 가고 싶으나, 새롭게 행함으로 ‘첫사랑의 불’을 붙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여라!

49. ‘새롭게 사랑’이다.

50. ‘새로운 사랑의 일’을 찾고 구해라. 그리함으로 ‘나 성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51. 새 시대에는 ‘더 새롭게 하기’다.

52.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마음’이 뜨겁게 불탄다.

53. ‘마음’이 불타야 ‘행실’도 불타게 된다.

54. ‘첫사랑의 불’을 붙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2014년도다.

55. ‘첫사랑의 불’이 안 붙으면 힘들어서 못 하고, 희망이 없어서 못 하고, 지루하고 지겨워서 못 한다.

56. 늘 하던 것은 지겹고 지루하다. <새것>을 찾아야 ‘힘’이 오고 ‘희망’이 불타서 하게 된다.

57. <새것>이 오면, <옛것>은 사라진다.

58. <새것>이 ‘새 힘’이요, ‘새 희망’이요, ‘새 사랑’이다.

59. <새것>을 찾으면, ‘첫사랑의 불’이 붙는다. 이 말을 깨달아라.

60. <옛것>은 이미 잔치하고 끝났으니, 이제 <새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자.

61. <새것>을 줄 테니 기도해라. 간구해라. 찾아라. 그러면 얻게 된다.

62. 말씀을 들었으면, 어서 시작해라. 그래야 ‘올해의 기회’를 뺏기지 않는다.

63. ‘첫사랑의 불’이 붙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64. 첫사랑이 식으면 서로 만나도 ‘할 말’이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다.

65. 첫사랑이 식으면 ‘성자’도 뺏기고, ‘너를 구원할 자’도 뺏기고, ‘사명’도 뺏기고, ‘새로운 것’도 뺏긴다.

66. <마음·정신·생각>이 ‘불’이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일으켜라! 그리함으로 <행동>도 강하게 일으켜라!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기쁨이 솟아나면 ‘백조’처럼 공중에서 날고, 기쁨이 사라지면 ‘거북이’가 되어 기어간다.

2. 높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오르면, 등반가도 힘들어서 지친다. 한 번에 올라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힘들고 지치기만 한다.
3. <인연>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정’을 낳는다.
4. ‘몸’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면 <천사>다.
5. 너를 사랑해 주는 것은 너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나눠 쓰라 함이다.
6. 마음 변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면, 성자는 축복을 주신다.
7. 선생이 뚫은 벽을 보고, 제자도 따라서 뚫는 것이다.
8. 작은 것을 보고서도 성자의 것을 택하여 살아라. 그러면 가면서 점점 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
9. 사랑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10. 사탄은 사랑의 방해자다.
11. 누구든지 자기가 사탄을 바로 알고,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사탄을 다스리고 주관해야 한다. 이는 100% 인간 책임이다.
12. 누구나 자기만 100% 주 뜻대로 행하면, 사탄의 영향권을 벗어나게 된다. 고로 사탄을 다스리고 주관한 것이 된다.
13. 사탄이 전혀 해를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 일을 안 하면, ‘자기 행위’로 인해 해를 받고 무너지게 된다.
14. 항상 자기 자신이 문제다.
15. 성자는 허락하셨어도 사탄의 방해 때문에 못 할 때도 있고, 자기가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할 때도 있고, 타인의 방해 때문에 못 할 때도 있다.
16.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성자의 힘을 받고 해라.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없다.
17. 항상 자기가 사탄보다 크고, 타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라.
18. 자기가 하면, 사탄도 타인도 항상 물리친다.
19. 성자도 주도 항상 성자를 사랑하고, 절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편이다.
20.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서 하면, 다 할 수 있다.
21. 사탄 주관을 벗어나면 사탄의 주관을 받지 않게 되고, 자기 주관을 벗어나면 자기 주관을 안 받게 된다.
22. 성자 주관에 들어가면 성자 주관을 받게 된다.
23. 나쁜 주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요, ‘변화’요, ‘구원’이요, ‘거듭나는 것’이요,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2014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24. 자기가 부지런히 행해야만 만들어진다.
25. '남 만들기'는 어려워도 '자기 만들기'는 쉽다.
26. 자기를 만들려면, 성자가 그 욕을 통해 전하신 시대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27. 순간 만들려고 하면, 잘 못 만든다.
28. 인생은 매일 그 날 일을 행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29. '집을 지을 때'는 1년에 할 것을 6개월 만에 빨리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그날그날 할 일을 행하면서 만들어야 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30. 자기를 만들 때 완전히 만들어진 것은 성격도 완전히 고쳐져서 더 이상 게으르지 않게 되고, 혈기 내지 않게 된다.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으니 시계가 작동하듯이, 자기도 자기를 만든 대로 행하게 된다.
31. '성격 만들기'다. '행위 만들기'다.
32. '만들기'와 '써먹기'다.
33. 완전히 만들어 났어도 써먹어야 된다. 써도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쓰기다.
34. 최대한 빨리 만들고, 최대한 써 먹기다.
35. 항상 성자 마음에 맞춰서 뛰고 날면서 쓰여져야 된다.
36. 성자의 욕이 되어서 그 정신과 마음과 몸으로 쓰여져야 된다.
37.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자기가 눈으로 보니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에 빠져 행하게 된다. 행하면서,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중심하여 행하지 않도록 하여라.
38. 매시간, 매순간 확인하면서 행하기다.
39. 매순간 시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몇 시, 몇 분인지 모른다. 이와 같이 성자와 주께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다.
40. 성자를 '시간'이라고 생각해라. 눈으로 시간을 확인하면서 하듯 성자께 확인하면서 해라. 대강 하면, 대강 시간을 알고 행하는 것과 같다.
41. 계시도, 할 일도 대강 확인받고 행하면, 대강 대충 하게 된다.
42.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그 사람과 똑같이 그리듯, 성자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씀대로,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일 점일획도 빠짐없이 깨끗이 행하여라.
43. 화장실도 대강 대충 갔다 오면, 또 가야 된다.
44. 자기가 씻어야 하는데 안 씻으면 꿈꿨음을 느낀다.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할 때 성자의 뜻대로 깨끗하게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꿈꿨음을 느낀다. 성자는 10배나 더 꿈꿨음을 느끼신다.
45. '증거'도 확실히 배우고 하여라.

46. ‘온전함’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네가 잘된다.
47. ‘사랑’도 온전히 하면, 미움이 없는 것이다.
48. 성자는 누구보다도 ‘확실히’ 하되, ‘흠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행하는 자를 신부로 삼고, 그와 같이 살면서 같이 행하신다.
49. 성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흠 없이 행하신다. 고로 행한 일마다 ‘작품’이다.
50. 몸부림쳐서라도 성자를 따라서 하면, 성자의 몸이 되어 대결작의 인생이 된다.
51.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하면 평생 해도 ‘구원’도 못 받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 <성자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52. 성자와 멀어지면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나온 것과 같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왔으면 빨리 물에 넣어야 하고, 나무가 땅에서 뽑혔으면 빨리 심어야 되듯이, 어서 빨리 성자와 일체 돼야 한다.
53. 성자를 ‘옷’이라 생각하고, 밖에 있으나 방에 있으나 늘 입고 있어야.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54.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은 곳만 깨끗해지듯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없앤 것만 없어진다.
55. ‘생활 승리’는 곧 ‘인생 승리’다.
56. 자기를 망치는 자는 첫째, 자기 자신이다. 둘째, 사탄이다. 셋째, 타인이다.
57. 자기가 자기에게 ‘영웅’이며, ‘관리자’이며, ‘행할 자’이며, ‘자기를 성공시키는 주인’이며, ‘자기 옆에서 자기에게 지시하는 자’다.
58. 성자도 우리의 지시자요, 명령자이시다. 성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시고, 우리가 도저히 못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 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 하게 해 주신다.
59.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타인에게 바라고, 성자에게 바라고, 주께 바라느냐. 못된 성격과 마음과 버릇을 잡초를 뽑아 없애듯 뽑아 없애라.
60. 자꾸 행해 버릇하면, 해진다.
61. 자꾸 안 해 버릇하면, 쉽게 할 일도 태산같이 어렵게 보인다.
62. 안 하는 성격이 고정되어 습관이 되면, 작은 일도 황소같이 보인다.
63. 일어나 ‘행위의 빛’을 발하여라.
64. 자기가 행하지 않았기에 구원의 주관권으로 못 와서 <천국>에 못 가게 된다.
65. 부지런한 자가 ‘먼 길’을 가고, ‘천국’도 간다.

66. <천국>은 멀어서 인생 새벽부터 서둘러서 가야 된다.
67. 가다가 인생의 해가 지면, <낙원>이다. <선영계>다.
68. 성자도 서두르며 가시는데, 육체를 가진 자들이 태만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심지어 삶의 잠까지 잔다.
69. 성자는 답답하니, 맨 뒤에 행악자를 보내어 쫓아오게 하여 성자의 품으로 뛰어오게 하신다.
70. 현재 주관을 벗어나서 성자가 원하시는 주관에 와서 쉬어라.
71. 사람이 서두를 때, 10배 더 빨리하게 된다.
72. 꼭 그 일에 성공하려면, 늦지 말고 서둘러라.
73. 시간이 없으면, 할 것도 못 한다. 사탄은 너 자신을 통해 '시간 뺏는 일'을 한다.
74. 시간에 늦으면, 밑물이 들어오듯 사탄이 침범하는 시간이 된다.
75.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나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곤경에 빠지게 하여 '시간'을 뺏는다.
76. 자기 애인이 물에 빠졌다 하자. 5분이면 구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구한다.
77. '시간'과 '성공'이다.
78. '시간'과 '싸움'이다.
79. 시간을 뺏고, 주 뜻대로 열심히 행하며 사는 자가 성공한다.
80. 시간을 뺏듯이, 성자를 자기 것으로 뺏어라.
81. 시간을 자기 애인같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써라. 그래야 자기 위치에서 성공한다.
82. 집중해서 시간을 쓰면, 영계의 시간으로 쓰기에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83. 혼과 영은 빛보다 400억만 배 빠르다. 고로 네 혼과 영을 따라 네 육이 행하면서 시간을 써야 육의 시간을 빛보다 빠르게 쓰게 된다.

<2014년 2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자는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좋아하신다.
2. 지난 것은 다 알고 계신다.
3. 하나님은 시대마다 세운 자를 데리고, 지난 시대의 일들을 이야기하신다. 현 시대에 사는 자들은 지난 일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4. 천국에 가도 자기가 살았을 때 한 것밖에 모른다.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를 해 주셔도 안 겪어 봤으니 모른다.
5. 천국에 가도 오랫동안 살아야 정이 붙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

6. 세상에서도 선생과 제자가 같이 오래 살아야 정이 붙고, 여러 사연들을 이야기하게 된다.
7.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같이 보고 산 것만 이야기한다.
8. 성자 분체도 성자 본체와 같이 행하며 살았을 때의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 말한다.
9. 성자에게 기도하기를 “베트남 전쟁터에서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성자가 100% 살려 주셨습니다.” 하니, 성자는 “아니다. 너도 책임을 했다.” 하셨다. 뭐냐고 하니, “네가 평소에 하나님과 나를 믿고 사랑하며, 내 말씀대로 행한 것이 책임분담이다.” 하셨다.
10. 내가 잘해 주면, 상대도 잘해 준다. 그러나 내가 잘 안 해 주면, 상대도 마음 변한다.
11. 잘해 주나 못해 주나, 변하지 않고 대하는 자가 진짜 사람이 된 자다.
12. 친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악인들에게 너무도 상상 못 할 고통을 받았다. 그에 비해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하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성자에게 물으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 선의 세계를 구원할 정도만 악을 멸하고, 나머지는 악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린다. 악한 자들이 현재 악하다고 다 멸해 버리면, 후에 돌이킬 자들까지 다 멸하는 것이 아니냐.” 하셨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온 인류를 살리는 기도’를 하기 원하신다.
14. ‘온 인류를 위한 한 사람의 기도’가 ‘자기와 자기 지역을 살리기 위한 수백만 명의 기도’보다 크다.
15. <기도>는 일이다. 온 인류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16. 영물인 사탄을 무엇으로 쫓아내고 멸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탄을 쫓아내고 멸하는 길이다.
17. 하나님은 항상 ‘선’과 ‘악’을 쪼개신다. 하늘 편이 아닌 자는 악이다.
18. ‘하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낸 자가 ‘그 시대의 중심’이다. 그와 하나 되지 않은 자는 악이다.
19. 누구나 ‘선의 마음’과 ‘악의 마음’을 잘 모른다. 어느 편이 선인지 몰라서 줄을 잘못 서면, 악 취급을 받는다.
20. 고로 표상으로 ‘구원자’를 보내어, 그를 중심으로 정했다. 그가 있는 곳이 ‘하늘 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자도 그 편에 계신다.
21.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 뜻을 내세웠다. 사탄은 항상 이 같은 수작을 부리며,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 조심해라.
22. 사탄은 악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내세우며 유혹하는데, 자기 뜻을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은근히 자기 뜻을 내세우면서 마음을 틀어 버린다.
23. 기도 안 하고 보면 ‘안 할 일’이 더 돋보이고, ‘꼭 할 일’이 눈에 안 띈다. 육적으로 봐서 그러하다.
24. (인생 100년이 너무 짧아서 아쉽다고 기도하며, 나는 월명동을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겠다고 간구하니 성자가 주신 말씀) 내 지혜 받고, 빨리 건강을 살피면서 해라.

25. (성자) 빨리 뛰면, 인생 100년이 200년 산 것 같다. 하루를 살아도 부지런히 뛰면서 산 자는 2배 이상 한다.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전체 중요

1. 승리가 예정됐어도 안 가면 패한다.

2. 겨울철 뜨거운 물이 식는 기회같이 '잠깐의 기회'다.

3. 과거 민족의 환난을 생각하지 말고,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의 때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한을 풀어라.

4.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다.

5.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랑하는 행위를 한 자'와 같다.

6.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의 행위'를 해 주었을지라도 그 여자의 마음에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성자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며 사랑으로 대해 줘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지 않으면, 성자의 사랑은 죽은 것이다.

7. 사랑을 해 줘어도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죽은 것이다.

8. 사랑을 안 해 줘어도 사랑하면, 그 사랑은 살아 있다.

9. 예수님은 율법에 속한 구시대인들을 '사랑의 행위'로 대해 주셨으나, 그들의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 사랑은 죽었다. 율법에 속한 구시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모두 구원받고 살 수 있었다. 주의 사랑을 받고도 그 마음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구원도 사랑도 받지 못하고 '육'은 사망권에 서 죽어 살게 되었고, '영'은 영원히 사망에서 살게 되었다.

10. 하나님과 성자는 사랑을 <말씀>으로 주신다. 말씀을 줘어도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랑>이 죽은 것이다. <말씀>이 죽은 것이다.

11. 성자의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사랑>이 죽은 자다.

12. 사람이 살아 있을 때만 살아 있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 있을 때만 <사랑>이 살아 있는 것이다.

13. 성자가 사랑을 주실 때 즉시 받고 써야지, 그 사랑을 받고 즉시 쓰지 않으면, 그 사랑은 겨울철에 뜨거운 물이 식듯이 식어서 죽는다.

14. 사랑은 <말씀>으로 온다. 사랑해서 성자가 말씀을 주실 때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죽는다. <말씀>이 죽으면, 자기 육도 혼도 영도 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15. '말씀 실천'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16. 가령 성자가 말씀을 주셨을 때 '즉시' 실천하지 않고, '늦게' 실천했다 하자. 이는 늦게 일어나 먼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격이다.

17. 성자가 사랑을 주실 때 '즉시' 반응을 보이고 일어나 행해야, 그 사랑으로 육도 혼도 영도 살린다.

18. 성자는 그 육과 함께 사랑하면,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19. <말씀>이 없으면 ‘갈 길’을 멈추게 된다. 마치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길이 없으면 더 이상 갈 수 없듯, <말씀>이 없으면 갈 길을 알지 못하여 결국 방황하게 된다.

20. 그래서 주의 말씀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21. 구시대에는 <말씀>이 끊어져 ‘길’도 잃었고, ‘갈 길’도 끝났다. 새 역사, 새 길, 새 말씀이다!

22. ‘길’은 닦아야 생기듯, ‘말씀’도 성자가 줘야 받고, 또 받는 자가 받으려 해야 주신다.

23. 성자의 말씀은 ‘인생의 답’이다.

24. ‘답’이 없으면, ‘문제’에 속해 헤매고 다니게 된다.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사 놓은 땅에 ‘산삼’이 있어 20년간 키우며 크게 뿔어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르고, 때가 되어 산삼을 캐야 되겠어요.” 하며, 내게 산삼을 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주인 대신 산삼을 캐러 그 밭에 가 보았다. 그런데 밭이 너무 오래되어 산처럼 되어 있었다. 한 군데가 땅이 불룩했는데, 그곳이 산삼이 있는 장소였다. 주인은 “삼이 커서 땅이 불룩하게 올라왔어요.” 했다. ‘삼이 얼마나 크기에 땅이 불룩하게 올라왔나?’ 하며 조심스럽게 캐다. 삼 주인은 믿고 나에게 맡겼다. 삼을 캐면서 생각했다. ‘나를 정말 믿고 보냈구나. 20년 전에 자기가 땅을 사고 산삼이 더 큰 것을 희망으로 기다렸는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내게 맡기고 캐 보라고 한 것을 보면...’ 그래서 잘 캐서 주려고 정성스럽게 캐다. 내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 나와 같이 산삼을 캐다. 손을 떨면서 산삼을 캐 보니, 삼이 하얗게 컸는데 엄지손가락보다 작았다. 그런데 캐낸 후에 자세히 보니, ‘산삼’이 아니라 ‘일반 농사 삼’이었다. 또 삼 뿌리가 보이기에 땅을 파다 보니, 삼 한 뿌리가 또 나왔다. 이번 것은 한쪽이 약간 썩어 있었는데, 검지로 살짝 눌러 보니 물렁했다. 그것도 캐내 보니, 역시 ‘산삼’이 아니라 ‘일반 인삼’이었다. 이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성자에게 물으니 “인삼은 사람이다. 산삼인 줄 알고 캐내 보니 일반 삼인 것은 그 사람에 대해 기대가 어긋난 나 성자의 입장을 보여 준 계시다.” 하셨다. 섭리사에서 성자와 함께 키운 사람이 이성으로 흘러가 ‘사랑의 기대가 어긋남’을 보여 준 것이다. 이는 이성 타락을 해 놓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산 자들과, 각종 기대에 어긋난 자들에 대한 계시다. 성경에서도 좋은 포도 맺으라고 길렀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한탄했다. (이사야 5장 참고) *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을 다해 키웠는데도 그 생명이 제대로 크지 못하고 탈락됐다. 이에 내가 더 관리하지 못하여 그런가 하고, 성자의 귀한 자들인데 생명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회개하며 기도했다. 그날 밤 성자는 “그렇지 않다.” 함을 꿈으로 보여 주시며 말씀하셨다.

2. ‘인삼’을 ‘산삼’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사서 한 세월이 다 가도록 키우며 다 클 때까지 기다리다가 캐 보니, ‘산삼’이 아니라 ‘농사 삼’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허탈하고, 꿈과 희망이 깨져 억울하겠느냐. 땅이 불룩하여 ‘산삼이 얼마나 클까?’ 기대했는데 산삼도 아니었고, 원래 그 지역만 땅이 불룩한 것이었다.

3. 모르고 살면, 억울함을 당한다.

4. 모르면, 결국 때가 되면 ‘기대’도 어긋나고 ‘꿈’도 깨진다.

5. 가치가 없는 것은 썩어도 아깝지 않다.

6. ‘무지’같이 인간에게 실망을 주고 해를 끼치는 것도 없다.

7. ‘무지’는 자기에게 고통과 해를 준다.

8. ‘산삼’이라 생각하고 길렀는데 ‘일반 농사 삼’이어서 기대에 어긋났듯이, 섭리사 사람들 중에서 기대에 어긋난 자들

을 말하는 계시였다.

9. <신앙의 인생>도 ‘산삼’ 같은 자가 있고, ‘장뇌삼’ 같은 자가 있고, ‘농사 삼’ 같은 자가 있다.

10. 자기를 ‘산삼 인생, 산삼 영’으로 만들어라.

11. 산삼인지, 장뇌삼인지, 농사 삼인지는 ‘삼의 머리’를 보고 알 수 있다. 이같이 인생도 ‘뇌의 생각’을 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산삼>은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 사람이 관리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충을 이기면서 크다. / <장뇌삼>은 사람이 심어야 되고, / <농사 삼>은 사람 손에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된다. 신앙의 인생도 그러하다. <산삼 인생>은 삼위의 말씀과 정신을 뇌에 꼭 채우고, 스스로 행하며 크다.

12. 인간은 ‘몸 값’보다 ‘생각 값, 뇌 값’이다. 뇌가 온전해야 몸 값이 나간다. ‘뇌’가 썩어 ‘정신’이 썩은 자는 ‘몸’도 썩는 짓을 한다.

13. ‘뇌’가 온전치 못하면 마음·정신·생각이 땅에 붙어서 수준 낮게 사니, 그 ‘몸’이 아무리 멋지고 예뻐도 가치가 없다. 일반 삼 인생이다.

14. 산삼이 돼도 몸체가 커야 값이 더 나간다. 너도 어서 키워라!

15. 사람은 ‘뇌’를 보면 안다.

16. ‘뇌의 생각’을 보면 사람의 가치를 안다.

17. 삼위의 말씀과 정신을 뇌에 꼭 채워 놓고 꿈과 희망을 품고 20년, 30년 동안 자기를 산삼같이 기른 자를 확인해 보면 안다. ‘뇌’만 봐도 안다.

18. 성자의 생각이 꼭 찬 뇌인가, 보통 생각을 담은 뇌인가, 자기중심의 뇌인가, 자기가 자기를 보아라. 성자 생각이 꼭 찬 뇌는 ‘산삼’, 보통 생각의 뇌는 ‘장뇌삼’, 자기중심의 뇌는 ‘농사 삼’이다.

19. 산삼 인생으로 생각하고 길렀는데, 장뇌삼이나 농사 삼이면, 기른 자가 꿈과 희망이 깨져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20. 아예 알고 기르면 꿈도 희망도 깨지지 않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실망하지도 않는다.

21. 뇌, 마음, 정신, 생각, 혼, 영을 보고 자기를 파악하고 변화시켜라. 확인하지 않고 하면, 확인한 후에 실망한다. 자기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알면, 욕이 바로 행하여 만들면 된다.

22. 자기가 자기를 파악하면 바로 안다. <삼>은 ‘농사 삼’이 ‘산삼’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성자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만들면 된다.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23. <형상석>의 값과 <일반 돌>의 값은 수천 배 차이다.

24. <일반 삼>의 값과 <산삼>의 값도 수천 배 차이다.

25. 진짜 온전한 형상이 있는 형상석은 ‘산삼’과 같다.

26. 성자를 진짜 100%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몇백, 몇천, 몇억을 줘야 구하는 ‘산삼 인생’이다.

27. 성자를 보통으로 사랑하는 자는 ‘장뇌삼 인생’이다.
28.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믿기만 하며 사는 자는 몇만 원이면 구하는 ‘농사 삼 인생’이다.
29. 제시간도 잘 지키면서 절대 성자와 일체 된 인생은 진짜 깊은 산속에서 자연에 의해 자란 ‘산삼 같은 자’다.
30. <농사 삼>은 많고, <장뇌삼>은 농사 삼보다 적고, <산삼>은 정말 귀한 것으로 그 수가 더 적어 귀하다.
31. 어떻게 산삼이 되고, 장뇌삼이 되고, 농사 삼이 될까? 씨는 같다. <산삼>은 일반 농사 삼 씨를 새들이나 산짐승들이 먹고 산에다 배설하면, 그중 100의 하나가 발아되어 자연에 의해 스스로 크다. 산속에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스스로 견디면 산삼이 된다. <장뇌삼>은 사람이 농사 삼 씨를 산속에다 뿌려 비바람을 맞히며 자연에 의해 10~20년 동안 크게 한다. <농사 삼>은 사람이 농사 삼 씨를 밭에다 뿌려 농사를 지어서 4~6년 만에 수확한 삼이다. 그 효능과 값은 각각 다르다. 산삼은 장뇌삼과 농사 삼과 비교할 때 그 효능도 값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높다. 사람도 자기를 만들기에 달려 있다. “나는 삼삼 인생인가? 장뇌삼 인생인가? 농사 삼 인생인가?” 하지 말고, 저마다 자기를 만들어라. 진실로 말하노니, 삼위의 말씀과 정신을 뇌에 꼭 채우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기에 달려 있다.
32. 전문가는 삼을 잘 분별하여 어떤 삼인지 바로 안다. 표가 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 바로 안다.
33. <진리>는 ‘산삼’과 같고, <비진리>는 ‘풀뿌리’와 같다. 풀뿌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
34. <제대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수천 배 차이가 난다.
35. 신앙의 인생도 <100% 한 자>와 <100% 못 한 자>의 차이는 수천 배 차이가 있다. 영계에서 보면 다 보인다.
36. 단상에서 외치는 자들도 산삼 같은 자 - 장뇌삼 같은 자 - 농사 삼 같은 자로 구분된다. 차원을 높이고 외치고 행해라!
37. 휴거된 자 휴거되기 직전에 있는 자 아예 휴거 밑 선에 있는 자 ‘상 중 하’ 세계다.
38. 휴거됐어도 300선 200선 100선 ‘상 중 하’다.
39. 모든 것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다.
40. ‘가짜’는 아예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다.
41. ‘가짜’는 아예 못 쓴다. 가짜 수표는 아예 돈이 아니라서 못 쓴다.
42. 티켓도 ‘가짜’는 아예 못 써먹는다.
43. 신앙의 인생도 ‘가짜’는 아예 쓸 수가 없다.
44. <거짓말>은 ‘가짜 말’이다. 고로 일부도, 조금도 못 쓰는 말이다.
45. 성자 본체의 이름을 대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그로 인해 죄의 끈에 매여 휴거까지 묶여 있다.
46. <웃>은 가짜라도 입고 다니면서 가짜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사람은 ‘사기꾼’ 하면 가짜다. 사기꾼만큼만 사용할 수 없다. 가짜니까 아예 사용할 수 없다.
47. 소나무여야 되는데 활엽수라면, 아예 소나무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 같이 ‘진짜 신앙의 인생’만 천국에 들어간다.

48. 진실한 말씀, 진짜 말씀, 참진리를 듣고 자라서 진실로, 진짜로, 참으로 성자와 일체 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비진리를 듣고 성장하거나, 우상 교리를 듣고 성장하면 그 '영'이 사망으로 예정되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49. 우리가 기도해도 '합당하고 진실한 것'만 하나님께 상달되고, '나머지'는 자기 입에서 혼자 말하고 끝난다.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50. '깨닫는 것'은 <산삼> 같고, '배운 것'은 <보통 인삼> 같다.

51. '성자의 말씀'은 <산삼> 같아서, 듣고 소화하면 산삼을 먹은 것같이 표가 난다.

52. 장뇌삼을 산삼으로 속여 팔고, 농사 삼을 장뇌삼으로 속여 파는데, 속지 말아라. 인생도 그러하다. 속지 말고, 영계에서 혼체로 성자에게 계시를 받고 알고 살아라. 자기 혼으로 자기 상태를 확인하여라.

53. 모르고 산 것같이 억울한 것이 없다. 알고 살아라.

54. 최고로 낙심하고 통곡하는 자가 누구인지 영계에서 보았다.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가 보니 천국 문이 아니라 지옥 문이 자기 앞에 닥쳐 그 영이 놀라서 떨고 두려워하며 쓰러져 몸부림치고 있는 자였다.

55. 영계에 가서 보고 확인하나 마나 육계에서 알 수 있다. 어떻게? 육계에서 '자기 행실과 삶'을 통해 자기 상태를 거의 짐작하고 알게 된다. 전문가가 보면 97% 이상 안다.

56. 올림픽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평소 연습할 때의 기록을 보면, 올림픽 출전 시 기록을 거의 짐작할 수 있다.

57. 영계 전문가는 영들을 보고, 그 영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 육이 죽으면, 그 영이 그대로 육이 살아 있을 때 거했던 그곳으로 간다.

58. 전문가는 안다. 알아도 말 못 한다.

5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대에 보낸 자가 모르면, 안 보내신다.

60.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다.

61.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계획한 것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안 하려 한다.

62.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63. '아는 것'이 <축복>이다. <돈>이다.

64. 알면 행하여 천국이고, 모르면 행하지 못하여 지옥이다.

65. 사탄은 인간이 몰라 무지하도록 늘 막고, '거짓'을 '참'으로 알게 유혹하면서 거짓으로 행한다.

66. 알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성자가 주시는 복'이다.

67. 알고 깨달도록 찾아라. 배워라. 가르쳐 주어라.

68. 모르는 자는 돈을 쓰고 수고하면서 희망차게 꿈을 이루려 한다. 실상은 무지의 실패 길이다. 아는 자가 그것이 아

니라고 이야기해 주면, 혈기를 내며 분노한다. 모르는 자는 실패 길을 가면서도 가다가 길에서 잔치하며 간다. 다 간 후에는 꿈에 불과한 현실이니, “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던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먼저 알았나.” 하며 탄식한다.

69. 몸부림쳐 밤새 기도하고 간구하여 자기 혼이 영계에 가서 성자에게 계시를 받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 먼 길 가려고 짐을 싸 놓은 것을 다 풀고 돌이켜 합당한 일을 한다.

70. <성자>는 ‘답’이다. 은밀한 것들은 그 욕을 통해 밝히신다.

71. <인간>은 ‘문제’이고, <성자>는 ‘답’이다. 고로 인간이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와 일체 되어 진정 같이 살아야 문제의 답을 알려 준다.

72. 아는 자는 ‘빛’ 가운데 살고, 모르는 자는 ‘어둠’ 속에 산다.

73. 월명동에 돌을 다 세워 쌓았다면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다 눕혀 쌓았다면 웅장할 수 있겠느냐. 돌의 모양대로, 돌이 생긴 대로 합당하게 세워 쌓거나 눕혀 쌓았기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섭리 인생들도 각각 합당하게 써라.

74. 월명동 야심작 자리에는 야심작이 자리 잡고 있고, 호수 자리에는 호수가 자리 잡고 있고, 잔디성전 자리에는 잔디밭이 자리 잡고 있고, <성자 사랑의 집> 자리에는 <성자 사랑의 집>이 자리 잡고 있고, <청기와집> 자리에는 <청기와 집>이 자리 잡고 있다. 고로 아름답고 조화롭고 신비하다.

75. <아는 것>이 그리도 ‘큰 것’이며 ‘보화’이건만, 알려 줘도 가치를 모른다. 가치를 알고 행하는 자만 ‘아는 보화’로 빛을 내어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76. 자기 위치에서의 삶이 합당하다.

77.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합당치 않다.

78.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는 어린아이같이 일어나 저지른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위해 해 준 자를 원망한다.

79.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는 좋은 물건도 만지다가 깨뜨린다. 귀한 것을 깨뜨렸어도 잘 모른다. 그러니 차원이 낮은 자에게는 좋은 것을 구경시키지도 말아라.

80. 이와 같이 두뇌의 차원이 낮은 자는 이 시대에 최고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도 깨뜨린다. 그래 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잘 모른다.

81. 성자에게 하늘의 귀한 생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기도하니, 성자는 “그렇지 않다.” 하며, 내 혼을 통해 한 사람을 보여 주셨다. / 그 사람을 ‘20년 된 장뇌삼’으로 보여 주셨고, 또 ‘반쯤 썩은 상한 장뇌삼’으로 보여 주셨다. 그와 같다 함이다. 누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자기 자신이다. 삼위의 말씀과 정신을 ‘뇌’에 꼭! 채우고 자기 스스로 행하며 살면, 누구든지 ‘산삼 인생’ 된다.

82. <다윗>은 ‘산삼 같은 자’이고, <사울>은 ‘장뇌삼 같은 자’다.

83. <산삼>도 <장뇌삼>도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크기가 큰가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된다.

84. <형상석>도 어떤 형상이며, 얼마나 형상이 확실한가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된다.

85. <사람>도 삼위의 생각과 행실과 얼마나 확실하게 일체 되어 삼위를 닮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도 ‘차원’도 좌우된다.

86. 10%, 50%, 80%, 90%, 100%... 얼마나 그 형상과 닮았는지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된다.

87. 형상적에 사람의 눈, 코, 입, 머리 등이 확실하면 ‘값’도 ‘차원’도 달라진다.

88. 신앙도 말씀, 믿음, 사랑, 행위가 확실해야 ‘가치’도 ‘차원’도 높아져 하늘도 땅도 모두 인정한다.

89. 어영부영하는 자의 영은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다.

90. 사람은 남자, 혹은 여자로 ‘성별’이 확실하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자에게 확실히 속한 자의 영만 천국에 간다.

91. 어떤 사람이 금 항아리를 귀히 여겼는데, 어느 날 바람에 날려 금 항아리가 깨졌다. 주인은 너무 아까워서 탄식했다. 주위의 온갖 사람들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고, 울음이 그쳐지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마디를 하고 갔는데, 그다음부터 금 항아리 주인은 울지 않고, 깨진 그릇을 더욱 마구 깨고 부숴다. 그리고 웃었다.

아는 자만이 슬픔도 아픔도 위로하고 고친다. 아는 자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준다.

92. 성자는 아신다. 고로 성자에게 묻고서 행해라.

93. 모르고 투자해 놓고, 거둘 때 빈손으로 돌아온다.

94. 성자는 때가 되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심판을 받으면 재물이 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꿈이 깨져 길바닥의 낙엽처럼 굴러다니게 되고, 매일 불쌍한 삶을 살게 된다.

95. ‘온실 속의 꽃’은 ‘정원의 화려한 꽃’이 되지 못한다.

96. 시련을 받으면서 연단하고 단련한 인생은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꽃을 피워 그 향기가 진동한다. 인생도 그러하다.

97. 온실의 꽃, 방 안의 꽃은 그 좁은 공간만큼만 향기를 낸다.

98. 월명동 바위 절경의 꽃과 나무는 보는 자들로 감탄하게 한다. 방 안의 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99. 성자는 그 욕을 굴과 대둔산 절벽과 굽주림 속에서 원시인같이 살게 내던져 놓으시고, 갇은 시련으로 단련하고 연단하게 하시어 ‘바위 절벽의 솔’이 되게 하셨다.

100.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살면서, 인생 젊었을 때 욕만 즐기며 욕으로만 누리던 자들은 끝나서 보이지도 않는다.

101. 찬바람과 비바람에 큰 꽃이 오래가고, 그 향기가 진동한다.

<2014년 2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몸>은 ‘자극’에 의해 움직이고, <마음>은 ‘감동’에 의해 움직인다. (몸이 따뜻하면 졸려서, 춥게 하고 기도했다.)

2. <생각>은 집중하고 생각해야 생각한 것이 기억나고 보이게 된다.
3. <계시>는 자기 상황 따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라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인다.
4. ‘자기 생각과 행실’이 영적 현상으로 비쳐 보인다.
5. ‘마음의 중심’을 많이 두면, 그쪽으로 빠진다.
6. ‘마음의 중심’을 많이 두면, 작은 바가지 샘에서도 못 빠져나온다.
7. 마음을 많이 돌수록 거기에 더 빠지게 된다.
8. 어떤 상대가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빠지기도 하고, 상대가 없는데도 혼자 어떤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마음이 빠지기도 한다.
9. ‘자기 마음’도 ‘자기 욕’같이 생각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자기 책임>이다.
10.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못 다스리면, 기도하여 성자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성자가 붙잡아 주기도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
11. <목적>을 두고 고생돼도 그 일을 하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안 빠지게 된다.
12.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네 마음도 생각도 그 일에 빠져 살게 된다. 그것이 영원히 남아 네가 누리게 된다.
13. ‘네 마음과 생각’이 물같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지, 가만히 놓고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봐야 된다.
14. ‘마음 문’을 닫으면, 사탄이 못 들어온다.
15.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16. 물을 끓이면 뜨겁게 되고, 그냥 놔두면 적당하고, 차갑게 하면 차갑게 된다. 이와 같이 ‘생각’도 그러하다.
17. 스스로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다. 고로 약하다. 제재를 받는다. 그릇된 생각일 수 있다. 완전하고 흠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해라.
18. 마치 아예 지구를 벗어나야 우주의 다른 별로 갈 수 있듯이, 아예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수 있다.
19. 인간의 생각은 낮은지 높은지, 모두 한정된 육신 주관권의 생각이다.
20. 동쪽과 서쪽은 아예 방향이 다르다. 땅과 하늘은 아예 다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은 아예 다르다.
2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그 생각대로 한 것이다.
22. ‘생각한 것’과 ‘그 생각을 행한 것’은 아예 딴 세상이다.

23. ‘마음 문’을 닫고, ‘행실의 문’을 닫으면 사탄이 못 들어온다.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현재의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것>을 보고 희망으로 열심히 해라.
2. 집을 지을 때도 <현재>만 보면, 아직 집을 짓는 과정 중이라서 실망하고 걱정된다. <미래>에 다 완성될 때를 생각하면서 희망으로 해야 된다.
3.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몇 년 동안은 퇴비하고, 잡초를 뽑고, 땀 흘리며 가꿔야 한다. 그래도 처음 몇 년 동안은 가율이 돼도 열매가 안 열린다. <현재>만 보면, 실망되고 낙심된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과일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 <미래>를 보면, 희망이 있다.
4. 자기 자신도 <현재>만 보면, 별 희망이 없다. 그러니 희망을 갖기보다 앞날이 걱정되고, 자기 자신을 보며 실망도 되고, 낙심도 된다. <미래>를 보고 희망으로 행해라.
5. ‘휴거’도, ‘경제’도, ‘사는 집’도, ‘자기가 성장하는 삶’도 <현재의 것>만 보면, 누구나 희망을 갖기보다 걱정이 앞서고 낙심이 된다. 그러나 <현재>보다 <미래>에는 더 희망찬 것이 있다. 하는 만큼 잘된다. 고로 힘을 내서 열심히 해라.
6. <현재>보다 <앞날>에는 더 잘되고 희망찬 것이 있으니, 힘을 내고 열을 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미래>에는 희망이 배로 더 크게 이루어진다.
7. 전도하여 어린 생명을 관리할 때도 그렇다. <현재>만 보면 낙심되고, 희망이 없고, 걱정되고, 한숨이 쉬어지고, 마음이 주저앉고, 힘이 빠진다. <현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미래의 것>을 보라.
8. 그 어떤 것이든 <현재의 것>만 보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낙심이 되어 힘이 쭉 빠지고, 자기 삶의 리듬이 깨진다. 그러니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신다. <미래>에 ‘때’가 되면 다 갚아 주신다.
10. 만일 사랑하는 자들이 수고했는데도 그냥 두면, 사랑하는 자들의 경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수고도 헛되게 된다. 그래서 절대 <미래>에는 잘되게 해 주신다.
11. 수고해라. 수고한 만큼 얻게 된다.
12. 성자 분체가 조건을 걸고 잘되게 기도를 해 놓았기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잘된다. 그러니 너도 조건을 세워 놓아라. ‘조건’은 땅값을 지불하면, 땅문서가 자기 것이 되는 것과 같다. 조건을 세운 만큼 앞날에 잘된다.
13. <현재의 것>만 보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 ‘내가 해서 뭐해?’ 하며 포기한다. <현재>만 보니까 포기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만큼 <미래>에는 반드시 잘되니, 힘내서 행해라.
14. 해는 절대적으로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면서 살면, 앞날에 절대적으로 ‘희망’이 떠올라 개성대로 희망이 이루어진다. 매일 날이 갈수록 ‘행한 대로’ 희망이 이루어진다.
15.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앞날에 희망이 이루어진다. 고로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16. <현재> 열심히 하면, ‘끝에 가서’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된다.

17. 100미터 달리기도 끝에 가서 승패가 결정된다.
18. 수영경기도 끝에 가서 승패가 결정된다.
19. 과일나무도 끝에 가서 과일이 열리고 익어 따게 된다.
20. 태 안의 생명도 태에서 크다가 끝에 가서 나오게 된다.
21. <옛 역사>도 끝에 가야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된다.
22. 신앙도 그러하다. 끝까지 가야 '구원'과 '휴거'를 이룬다.
23. '성자 본체와 분체'도 <신약역사>가 끝나고, 섭리역사가 <독립의 해>를 맞을 때에 끝에 와서 밝혔다.
24.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으로 행하되, 끝까지 해라.
25. 낙심 말고 포기 말고, 끝까지 해야 휴거 안 될 자도 휴거된다.
26. 육신이 하다가 말면, 자기 영이 '천국의 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여 천국에 갈 수 없다.
27.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서 희망과 기쁨으로 '끝까지' '완전히' 해야 된다. 이것이 '인생 성공하는 길'이다.
28. <미래>에는 <현재>보다 잘되니, 낙심 말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성자의 말씀을 뇌에 꼭 채우고, 자기를 매일 관리하고, 생명을 매일 관리하고, 성자를 극적으로 사랑하고,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하며 힘차게 희망 있게 행해라.
29. 네가 휴거될 것을 믿고, 희망으로 행해라.
30. <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성자는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고 성령을 주며 이끌어 주시고, 분체는 부지런히 휴거되는 말씀을 전해 주며 조건을 세워 주면서, 모두 휴거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 자기 육신만 딱 마음먹고 희망으로 끝까지 행하면, 모두 '휴거의 영'이 된다.
31. 육도 영도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미래까지 계산하여 희망으로 부지런히 행하며 살아라. 믿고 행하여라!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현재의 것'은 <과정>이다. '현재의 것'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는 대로 변화되고, 하는 대로 완전히 딴 세상이 된다.
2. 현재에 머물면 '현재의 것'만 그대로 받기에 좁고, 부딪히고, 답답하다.
3. 인생을 사는 것은 마치 좁은 산길을 가는 것과 같다. 산길을 가면서 '현재의 것'만 사용하면, 좁고 걸리고 답답하다. 땅을 파고 길을 닦으면, 하는 만큼 변화되어 만들어진 넓은 길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 때 '현재의 것'만 사용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는 만큼 변화되고 잘된다.
4. '현재의 것'만 보고 듣고 낙심하지 말고, '만들 것'을 예상하고 기뻐하며 희망에 차서 행해라.
5. 현재 자기를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수고하여 만들면, 미래에는 '희망의 몸'이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된다.

6. 현재에서 가만히 자세히 보아라. 무엇을 어떻게 수고하며 행해야 되는지,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다. 행할 것을 발견했으면, 수고하고 노력하며 행하여라. 행하고 수고한 만큼 변화되어 환경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좋아진다.
7. ‘수고’와 ‘몸부림’은 무한한 희망을 주고, 실체를 얻게 한다.
8. 수고하고, 노력하고, 보고, 찾고, 행하는 만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9. 100% 살살이 끌어내고, 찢고, 닦기다.
10. 네가 100% 행해야 네가 100% 얻는다.
11. 네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과 ‘영원함’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가 행해야 얻는다.
12. 알아야 행하게 된다. 행하되, 100% 온전하게 행해야 얻는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네가 함께 행하여 함께 얻고, 함께 쓰고, 함께 누리기다.
14. 자기가 사는 <고향 환경>도 그대로 사용하면 그대로 그만큼 희망이고, 그만큼 기쁨이다. 만들고 수고하여 변화시켜라. 그러면 완전히 딴 세상이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그대로 쓰면서 살면, 그만큼 희망이고 기쁨이다. 매일 수고하여 만들어라. 영원한 희망이 있으려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기’다.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 만들기’다. 그래야 자기를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고, 희망이 되고, 그로 인해 영원히 얻게 된다.
15. 새벽부터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 새롭게 쓰기다. 그러면 하루 종일 이상세계다.
16. 물건이나, 작품이나 한 번 만들면, 그대로 평생 간다. 고로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
17. 사람의 성품, 생각, 행실, 혼, 영을 만들면, 수백 가지로 다양하게 쓰여진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쓰여져 보아라. 얼마나 다양하고 이상적인지 아느냐. 마치 동(銅)이 다양하게 쓰여지듯, 너도 다양하게 쓰여진다.
19. <현재>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한다. <미래>를 보고, 희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며 만들어 나가야 된다.
20. 섭리역사도 과거 삼선교 시절 때, 그때 현실만 보고 산 사람들은 낙심하고 나갔다.
21. <현재의 것>만 보면, ‘희망’이 그만큼밖에 안 보인다. 고로 걱정되고, 불안하고, 한숨이 쉬어진다. <현재>만 보고 희망 없다 하며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아라. 미래에는 더 커지고 더 잘되니, <미래의 것>을 보면서 희망으로 살아라.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는 ‘사랑하는 자’를 뺏기게 된다.
2. ‘마음’ 뺏기면 ‘행실’ 뺏기고, 결국 ‘몸’도 뺏기게 된다.
3. <첫사랑이 식는 원인>은 처음같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4. <처음같이 사랑하지 않는 원인>은 이미 뜨거운 사랑을 겪었기에 호기심이 없어지고, 같이 사니 귀한 것을 모르고,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5. 매일 하던 것만 반복하면, 마음에 새로움이 없어져 ‘권태’가 오고 ‘열심’이 식게 된다.

6.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사람’을 얻으면, 처음에는 거기에 미쳐서 밥도 잠도 멀리하고 열정이 솟구쳐 좋아한다.

7. 사람도, 물건도, 환경도 ‘세상의 것’은 시간이 가면 ‘옛것’이 되어 <첫사랑>이 식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한 존재자로서 사랑할수록 더 새롭고, 사랑할수록 첫사랑이 더욱 빛난다.

8. 첫사랑이 식으면, 마치 최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그보다 못한 집에 가서 사는 것 같아서 ‘사랑’에도 희망이 없어지고, ‘삶’에도 희망이 없어진다.

9. 사람이고, 물건이고, 환경이고, 그것을 얻고자 희망할 때는 마음에 불이 타서 간절히 원하며, 그것을 얻기만 하면 평생 귀히 여기면서 살겠다고 맹세하고 고백한다. 그러나 자기가 바라고던 것을 얻고 나면 사랑도 식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식고, 오히려 바라고 원하던 때보다 못하게 산다.

10. 첫사랑이 식으면 ‘사랑하는 자’는 버리게 되고, ‘물건’은 팔아 없애게 된다.

11. 첫사랑이 식으니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성자를 점점 멀리하게 된다. 그러다 ‘성자’를 뺏기고, ‘자기 마음’도 뺏기고, ‘자기 몸’도 뺏기고, ‘자기 생명의 삶’도 뺏긴다. 결국 사탄이 그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게 된다.

12. ‘첫사랑’을 뺏기면, ‘휴거’를 못 한다.

13. <휴거의 비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나오는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참되고 진실하게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14.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듯, <사랑>이 다 타면 ‘사랑의 불’도 꺼진다.

15. 나무가 다 타면, 새로운 나무를 갖다 넣어야 계속 불이 붙어 타듯이, 사랑도 차원 높여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행실’로 사랑해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진다.

16. 첫사랑을 중심해서 수백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새롭게 해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진다.

17. 월명동을 처음 개발할 때 ‘첫사랑의 불’이 붙어 새벽부터 해가 지도록 일했다.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일할 것이 없으니 ‘일의 불’이 꺼졌다. 그다음에는 월명동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삼위께 영광 돌리게 했다. 고로 또 ‘첫사랑의 불’이 타올랐다. 집회를 계속하니, 이 불도 점점 꺼지게 되었다. 고로 다시 기도하고 연구하여 <성자 사랑의 집>도 짓고, <기도 동산>도 만들고, 나머지 더 일할 곳을 했다. 그러면서 ‘꽃 축제’, ‘돌 축제’를 하고, ‘<성자바위>와 각종 형상 돌 이벤트’를 하여 다시 ‘자연성전 첫사랑의 불’이 타게 했다. 성자와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맛있는 이벤트를 해야 된다.

18. 남녀의 첫사랑이 식지 않으려면, 계속 새로운 것을 행하며 다양한 것을 같이 행하며 살아야 된다. 성자와의 사랑도 그러하다.

19. ‘성적 사랑’만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중심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이다.

20. 반복하는 삶은 ‘호기심’도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도 사라지게 한다. 차원 높여 새로운 방법으로 행해야 ‘새 힘, 새 희망, 새 사랑’이 차올라 희망찬 삶이 연속된다.

21. 저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행하여 개성으로 ‘사랑의 빛’을 발하여 ‘첫사랑의 불’을 뜨겁게 붙여라. 그래야 그토록 원하는 <휴거>를 이루게 된다.

22. 깊고 신령한 기도를 하며, 말씀을 깊이 깨달으며, 시대와 말씀을 증거하며, 생명들을 전도하고 관리하여 성자를 사랑하게 하고 본체를 깨닫고 믿게 하며 ‘첫사랑의 불’을 붙여라. 내가 ‘사랑의 불’이 붙었으면, 형제에게도 ‘사랑의 불’을 붙여 주어라.

23. ‘사랑의 일’을 해야 ‘사랑의 불’이 붙는다.

<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24. 새롭게 하지 않고 하던 것만 반복하면, 권태가 온다. 권태가 오면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고, ‘호기심’이 없어지고, ‘불’이 식고, ‘열심’이 식는다.

25. ‘새로운 이벤트’가 없으면, ‘사랑의 판’이 식는다.

26. 회사도, 정치도, 종교도 ‘새로운 아이템’이 없으면, 판이 식기 마련이다.

27. 섭리역사의 각 교회, 각 기관, 각 부서들도 ‘새로운 아이템’이 자꾸 나와야 된다. 새롭게 하지 않으니, 따르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희망’이 없고, ‘첫사랑’을 잃게 된다.

28. 새롭게 하지 못하면, 옛것에 묻힌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행하신다.

30. <새 역사, 새 사람, 새 말씀>이 ‘능력’이다. ‘힘’이다. ‘희망’이다.

31. 지도자들은 밤낮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무엇이 좋은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묻고 의논해라. 지도자가 늘 하던 것만 하니, 따르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재미를 잃어 권태가 찾아왔다. 고로 성자는 방법을 달리하여 새 지도자로 바꾸신다.

32. 지도자라면 아이큐가 높아야 된다. ‘생활의 아이큐’가 정말 높아야 된다. ‘생활의 아이큐’를 높이려면,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 그의 생각대로 행하며, 연구하고 노력해라.

33. 아무리 열을 내도 첫사랑이 식는 원인은 뇌가 굳어서 사랑의 차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4. <성자바위>도 처음에 갖다 났을 때는 “신비하다. 귀하다.” 하며 ‘첫사랑의 불’이 붙어 성자에게 감사했다. 그러나 1년도 못 가서 그 마음이 점점 식었다. 선생은 1년이 지났어도 “이 바위를 돈을 주고 사려면 엄청납니다. 이 바위는 성자가 주신 사연이 있으니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보석입니다.” 하며 늘 감사 감격했다. 그리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다 보면 돌이 닳아 형상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요? 관을 짜서 거기에 넣어 놓을까요?” 하며 성자에게 이야기했다. 성자는 “너는 내가 준 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아는구나.” 하셨다. 선생이 “<하나님 바위>, <성령님 바위>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니, 성자는 “하나님, 성령님, 나 성자는 삼위일체이니, <성자바위>의 성자 형상으로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하셨다. 선생은 “그래도 삼위일체는 각 위로 존재하시고, 성령님은 여성 신이라서 다르잖아요. 비슷한 상징 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했다. 성자는 “사진국의 상희에게 <성자바위>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오라고 해.” 하셨다. 이에 즉시 사진을 찍어 오라 했고, 5일 만에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그 사진을 보니, <성자바위 측면>에 ‘근엄한 남자 형상’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 반대 측면>에 ‘여자 얼굴’이 조각한 것같이 또렷하게 보였다. 이에 기뻐하며, 성자와 함께 사연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감격하고 탄복하면서 “이 바위는 정말 신비하고 기절초풍

할 바위예요! 중국에에서는 사막에서 주운 주먹만 한 ‘사람 형상 돌’이 경매 가격 150억에 팔렸다고 하는데, <성자바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곧 ‘신의 형상’이고, 또 성자가 가르쳐 줘서 땅에 묻힌 것을 캐 와서 성자와 사연이 얽힌 바위이니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하며 감탄했다. 계속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귀히 여기며 성자를 사랑해야, 성자는 또 ‘새로운 것’을 찾게 하신다. 또한 <성자바위>를 계속 귀히 봐야, 그것을 통해 성자가 나타나 ‘만물 계시’를 보이시고, ‘표적’을 행하신다.

35. 성자를 사랑해야 또 주신다. 감사하고 가치를 알고 써야 또 주신다.

36. 눈을 떠라! ‘혼계, 영계’에 눈을 떠라. ‘휴거’에도 눈을 떠라.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여 가치 있는 자가 된다.

37. ‘자기의 타고난 형상’을 발견해라.

38. ‘자기 의미, 자기 사명’을 찾아라.

39. 자기 속에 무한한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 월명동 지역에서 각종 보물들을 발견하듯이, 네 속에 잠재돼 있는 것들을 발견해라. 낙심하지 말고, 네 자신을 깊이 보고 깨닫고 찾아라.

40. 월명동에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돌이 없다고 하며, 만 리 떨어진 타국에 ‘형상 돌’을 사러 갔다. 그러나 없어서 못 샀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할 때, 성자께서 ‘신비한 형상 돌’을 보여 주시어 집 근처에서 찾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다 놓고 모두 구경하게 했다. 너도 낙심 말고, 네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라. ‘자기의 타고난 형상’을 찾아라. ‘타고난 정신, 개성, 사명’을 찾아라.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41. ‘첫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새롭게 해라. 연구해라.

42.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면, 성자를 사랑하고 조건을 세워라. 새롭게 하는 것’이 <조건>이다.

43. 새롭게 하여 ‘첫사랑의 불’이 타게 하고, 끝까지 해라. 그러면 성자가 계속 ‘새로운 것’을 주신다.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44. ‘첫사랑의 불’이 타야 휴거된다. ‘첫사랑의 불’이 꺼지면, 힘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한다. 그러면 삶의 희망도 없어진다.

45. ‘첫사랑의 불’이 붙어야 새롭게 ‘할 일’을 깨닫고 하게 된다. 고로 올 한 해만이라도 성자를 미련 없이 모시고 사랑하며 살게 되고, <성자 사랑의 해>를 기쁨과 보람으로 보내게 된다.

46. 올 한 해 첫사랑의 불을 붙이지 못하여 기회를 놓치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된다.

47. 성자는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처분만 기다리며 쳐다보고 계신다.

48. ‘새롭게 사랑’이다.

49. ‘새롭게 사랑하는 자’는 ‘발에 감춰진 보화를 새롭게 발견한 자’와 같다.

50. 새 시대에는 누구나 ‘새롭게 하기.’다. <새것>이 준비하게 늘어져 있다. 찾으면 있다.

51. <새것>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새로운 희망’을 주는지 알아라.

52. 모두 개성대로 <새것>을 찾아라. 그래야 새로운 불이 붙게 된다.

53. 올해 ‘첫사랑의 불’을 새롭게 안 붙이면, 2014년은 차원이 높아서 힘들어서 다음 차원으로 못 오른다.
54. <새것>이 오면, <옛것>은 사라진다.
55. 왜 옛것을 사용하지 않겠느냐. 새것이 와서 새것을 사용하느라 옛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56. 신약인들이 왜 구약 제도를 사용하다 사용하지 않는지 아느냐. 새 제도를 사용하느라 옛 제도는 모두 다 내던지고 산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57. <새것>이 ‘새 힘, 새 희망, 새 사랑’이다.
58. 하나님의 역사도 <새 시대, 새 사람, 새 말씀>이 ‘새 힘, 새 희망’이다.
59. 에덴동산의 하나님의 첫사랑을 받으려면, 아담과 하와가 세우지 못한 ‘사랑의 조건’을 세워 ‘첫사랑의 불’을 붙여야 된다.
60. 섭리사도 옛것은 옛날 그때 끝났다. 현재에는 또 새롭게 해야 된다.
61. 옛것은 그때 잔치하고 그 차원에서 끝났다. 새 시대가 왔으니, 다시 새롭게 하며 잔치해야 된다.
62. 기도하여 ‘육’으로 보던 것은 ‘혼’으로 새롭게 보고, ‘혼’으로 보던 것은 ‘영’으로 새롭게 보라. 간구하고 찾아라.
63. 말씀을 듣고도 시작하지 않으면, 감동된 마음이 식어 버린다. 마음이 식으면 그때는 못 하게 된다. 말씀을 듣고 바로 행해야 <성령의 역사, 성자의 역사>가 시작된다.
64. 행하지 않으면 ‘사랑의 촛대, 희망의 촛대’가 점점 옮겨져 간다.
65. ‘첫사랑의 불’을 붙여야 깨닫고 동감한다.
66. 첫사랑이 식으면, 만나도 할 말이 없다.
67. 첫사랑이 식으면, 서로 뺏긴다.
68. ‘첫사랑의 불’이 붙도록 새 마음으로 새롭게 기도해라.
69. 기도할 때는 열차처럼 달리듯 해야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
70. 기도할 때는 정신일도 하고 계속 할 말을 뇌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고해야 된다.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가고, 졸리지도 않고, 사탄이 틈타지 못한다.
71. 나이가 먹어 뇌가 굳었든지, 젊어도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뇌가 굳고 지능이 낮으면, ‘기도 내용의 차원’도 낮다. 고로 얻는 것이 적다.
72. 기도를 글로 써서 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기도해지지 않는다.
73. 특히 교역자들이 설교 후에 기도할 때, 미리 기도를 글로 써 와서 하면 성령의 감동의 기도를 못 한다. 설교를 할 때와 하고 난 후에 설교자부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감동과 은혜에 따라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게 된다. 먼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성령으로 외쳐라. 그리고 그 감동과 은혜로 기도해야 된다.

74. 청중 기도를 할 때도 글로 써서 하면, 성령의 감동의 기도가 안 된다. 고로 성령도 성자도 기도를 어떻게 할지 감동시키지 못한다.

75. 자신이 없는 사람은 청중 기도를 할 때 미리 써서 준비는 하되, 그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된다.

76. 기도를 들어 보면 영적인지 알 수 있고, 평소에 기도를 깊이 하는지 알 수 있다.

77. 기도를 깊이 하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을 본인이 안다.

78. <성자와의 대화 기도>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받으면서 한다.

79. 하나님과 성자가 자기 기도를 받아 주시는지 확인하려면, <대화 기도>를 하여라.

80. <혀>가 닳도록 '성자와 대화'하고, <몸>이 닳도록 '성자를 사랑'하여라.

<2014년 2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수고함으로 얻는 것이 가치가 있다.

2. 수고함으로 얻어야 더욱 귀히 여긴다.

3. 길을 가다가 꺾어서 간 것만 간 것이 아니다. 돌아서 원형으로 간 것도 간 것이다.

4. 사람들은 현실주의라서 목적을 두고 90도, 45도 확실히 꺾어서 간 것만 꺾어서 간 것으로 인정하고 인식한다. 비스듬히 조금씩 휘어서 갔어도 실상은 그 방향으로 갔으니 결과는 꺾어서 간 것과 같다.

5. '뛰어서 간 자'나 '걸어서 간 자'나 목적지를 갔으면, 결국 같은 취급을 받는다.

6. 사람들은 동쪽으로 'ㄱ'자로 꺾어서 간 자만 동쪽으로 갔다고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동쪽으로 조금씩 걸어간 자도 결국 동쪽으로 가게 된다.

7. 성격상 좌로나 우로나 꺾어서 가면, 보는 자가 즉시 동쪽으로 가는 것을 실감하고 인정한다. 그러나 성격상 한 걸음씩 좌로나 우로 조금씩 방향을 돌려서 가는 사람도 있다. 결국은 같은 곳을 간 것이다. *<영상1>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8. 자기 성격대로 '꺾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힘드니까 '돌아서 점점 가는 사람'도 있다. 고로 지도자는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무리하게 다스리고 관리하면 안 된다. *<영상2> (계속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9. 죄를 짓는 것도 어떤 사람은 표가 나게 죄를 짓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죄를 짓는다. 고로 표가 나게 죄를 짓는 사람만 죄인시하고, 표가 나지 않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인시하지 않는다. 고로 지도자와 관리자는 표가 안 나게 조금씩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임을 알고 다스려라.

10. 사탄도 표가 나게 꺾고 유혹하면 들키니까, 조금씩 꺾고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다.

11. 관리자를 피해서 조금씩 우회하면서 표가 나지 않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아라.

12. 글자를 봐도 꺾어서 정확히 받침을 썼거나, 혹은 흘려서 받침을 썼거나 다 같은 글자로 본다. *<영상3> (글씨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13. 안 한다고 하면서 표가 안 나게 조금씩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혹은 확 표가 나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 둘 다 같은 취급을 받을 사람이다. / 그러나 세상은 이 둘을 다르게 본다. 그 판단이 온전치 못하니,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영상4> (그림으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14. 표 나게 속 시원히 행동하지 않아도, 둘러서 천천히 하는 자들이 있다. 고로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은 표 나게 하는 자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15. 표가 나게 불의를 행하지 않아도 조금씩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근본의 온전한 방향을 잃고 가게 된다. 고로 지도자들과 관리자들은 이를 알고 생명을 잡아야 된다.

16. 표가 나게 불의를 행하는 자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방향을 잃고 가는 자도 결국 ‘공의의 틀’에서 탈락되게 되니, 불법을 행하는 자와 같다.

17. 사탄은 조금씩 유인해서 사망으로 데리고 간다. 사기꾼도 조금씩 유인하면서 속인다. 고로 자기가 사탄을 따라가는지, 사기꾼을 따라가는지 모른다.

18. 조금씩 가도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같은 하늘 편이다.

19. 말씀을 들어도 즉시 꺾어서 행하는 자가 있고, 한 걸음씩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목적지로 가는 자가 있다.

20. ‘느린 자’는 <완행열차>와 같고, ‘빠른 자’는 <급행열차>와 같고, ‘더 빠른 자’는 <초고속 열차>와 같다.

21. 개성대로 인도해 주고, 이해해 주고, 지도해 주어라.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했기에 그중의 누구든지 한쪽에서 사랑을 끊으면, 사랑을 끊지 않은 자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

2. 사랑을 하다가 사랑하기 싫어서 끊은 자는 자기가 좋아서 제 갈 길을 가니, 상처가 없다. 사랑을 하고 끊지 않은 자가 상대방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한다.

3. 성자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해 주었고, 그로 인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다가 성자를 안 믿고 세상으로 가면, 성자만 애가 타고 상처를 받게 된다. 안 믿고 떠난 자는 상처를 안 받는다. 자기를 사랑하던 자가 다른 자와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지가 떨리고 괴롭다. 성자는 그 고통을 인간보다 1000배나 더 받는다. 영이라 육보다 고통을 더 느끼고, 그들의 영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을 알기에 고통을 더 느낀다.

4. 인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많지 않다. 그러니 사랑으로 인해 상처받는 대상도 얼마 안 된다.

5. 성자가 구원하려는 자들은 많고도 많다. ‘온 인류’다. 고로 성자가 사랑한 자들이 정말 많다. 그들 중에서 성자를 버린 자들이 너무 많다. 하루에도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성자는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고통을 다 받으신다.

6. 성자는 전능자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고로 인간이 성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성자는 인간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애인 같은 자가 죽기 때문이다. 갇은 굴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어도, 다시 성자께 돌아오면 또 사랑해 줘야 된다. 성자가 안 받아 주면, 사탄이 그 영을 잡아가지고 그가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7. 사람은 미워할 자가 있으면 미워하고 화로 푼다. 그러나 성자와 주는 구원해야 하기에 화도 못 내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사랑해 줘야 된다.
 8. 성자와 주는 인간을 구원해야 되기에, 마치 인질로 잡힌 애인을 놓고 갇은 창피와 억울함을 당하며 무릎 꿇고 빌듯이 사랑으로 대하신다. 나갔다 돌아와도 책망도 못 하고, 혼도 못 내고, 그저 좋아한다.
 9. 구원의 사명을 받고 왔어도 사람들이 하도 속을 썩여서 심장마비가 날 정도다. 성자의 신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애간장이 타서 죽으니 할 수가 없다.
 10. 주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 형벌을 다 받게 된다.
 11. 욕신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도 지옥의 고통을 ‘마음’으로도 받고 ‘욕신’으로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지옥에서 ‘영’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지옥에서 1초 동안 받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받는 고통처럼 잔인하다.
 12. 순간 뜨겁게 달군 젓가락을 얼굴과 몸에 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연속되고, 칼로 고기를 자르듯 자기 살을 찌꺼 자르는 그 순간의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튀고, 온몸의 뼈가 다 녹는 것 같고, 양손으로 골을 주물거리는 그 순간의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100년 동안 고통받는 것보다 지옥에서 단 1초 고통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13. 세상에서 10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살았어도, ‘지옥의 고통’은 욕으로도, 마음으로도 받아 본 사람이 없다. 말로는 “지옥 같아.” 하지만, ‘지옥에서 <영>이 받는 고통’과 ‘이 세상에서 <욕>으로 <마음>으로 받는 고통’은 비교가 안 된다.
 14. 욕신이 뜨거운 불에 데어 본 사람은 지옥을 조금 느껴 봤다고 할 수 있다.
 15. 성자와 그 욕을 제대로 깨달아야 일순간 운명이 바뀐다.
 16. ‘성자’가 좌정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욕인 사명자’를 보아라.
 17. 예수님 때를 보아라. 예수님의 욕신만 보고 평가하고 대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 그러므로 한 명도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욕을 쓰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를 몰랐다.
 18. 모르면 망한다. 평소 자신이 살아온 삶의 사고와 행위가 자기를 망하게 한 것이다.
 19. ‘선한 자’는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하게 행하고, ‘악한 자’는 자기가 쌓은 악에서 악하게 행한다.
 20. ‘선’은 선으로 통하고, ‘악’은 악으로 통한다.
 21.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으나 안 믿으나, 전체가 ‘자기 삶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22. 한술을 먹어도 제때 먹어야 맛있듯이, 말씀도 줄 때 제때 믿고 받아먹어야 제맛이 난다. 때 지나간 뒤에 그제야 들으면, 맛이 없다.
-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욕의 사랑>은 ‘눈사람 사랑’이다. 눈과 눈을 뭉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격이다. 눈은 순간 녹아 물이 되어 흘러가듯, 욕의 사랑도 순간 사라진다.

2. <영의 사랑>은 영원하다. 자기 ‘육’이 성자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랑하면, 자기 ‘영’도 같이 성자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금 동상같이 세워져 영원히 남아진다.
3. <정신적, 영적 사랑>은 ‘육’도 가고, ‘혼’도 가고, ‘영’도 가는 완전한 사랑이다.
4. ‘영’ 자체가 영원히 존재하니, 성자와 사랑해야 <영의 사랑>이 되어 영이 살아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5. 영이 살려면, 산 자와 일체 돼야 한다. 산 자는 성자가 보낸 자다.
6. <성약역사>는 영이 ‘완성된 영’으로 살아나는 시대다. 마치 봄과 같다. 이때 완전히 변화되고 살아나야 된다.
7. 단순히 막연한 <영의 사랑>이 아니다.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함으로 ‘영’이 신부로 갖춰져서 성자와 사랑해야 된다.
8. ‘영의 수준’에서 사랑해야 한다. ‘육의 수준’에서가 아니다.
9. 육이 휴거되려면 ‘육’이 성자를 절대 사랑해야 되고, ‘영’이 휴거되려면 영이 성자를 절대 사랑해야 된다.
10. 성자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한다.
11. 성자가 그 육을 통해 주는 시대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가는 자는 ‘영 휴거 코스’를 따라서 ‘휴거의 길’을 가는 자다.
12.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진정 사랑하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하여 여자를 자기 것으로 취한다. 성자와도 그러하다. ‘사랑’은 영원히 사는 운명을 좌우시킨다.
13. 성자를 사랑하면, 성자가 우리 영을 취하여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신다.
14. <천국>은 ‘하나의 집’으로 보고 창조했다.
15. <천국>은 어디를 가나 방이나 집같이 만들어 났기에 다 집 같다.
16. 하루의 선악이 갈라지는 시간, 선악을 좌우하는 시간은, ‘새벽’이다.
17. ‘시간’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안 쓰고, 성자에게 드려야 된다.
18.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각종 세상 문화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게 하며 시간을 뺏는다. 그렇게 시간을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19. 수정 동굴 깊이 들어가야 수정을 볼 수 있듯이, ‘기도’로 성자가 계신 곳까지 성자의 마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자를 못 느낀다.
20.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서로 극히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이 두 개’다. 사랑할 때만 ‘사랑이 하나’다.
21. 성자와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이 성자를 극히 사랑하는 순간이다.
22. 성자가 보낸 자는 마치 관광지의 가이드같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휴거에 대해, 성삼위에 대해 잘 안다.

고로 그 말을 자세히 들어야 된다. ‘육 휴거’에 대해서도, ‘영 휴거’에 대해서도 잘 들어라. 모르면, 모래 한 알만큼도 행하지 못한다. 알고 행하는 자는 육도 영도 휴거된다.

23. <인간적인 증거>는 ‘인간의 생각과 말’만 남긴다.

24. ‘진리’를 근거해서 증거해라. 그래야 확실하다.

25. 진리를 근거해서 증거하되, 기도하여 성령이 감동을 주는 대로 증거해라.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26. ‘먹는 대로’ <체질>이 좌우되고, ‘생각하는 대로’ <성격>이 좌우된다.

27. 음식의 질에 따라서 그 음식을 먹으면, 몸이 영향을 받는다. 흙에서 나는 음식을 먹으면 성격이 차분해진다. 육식 동물을 먹으면 성격이 거칠어진다.

28. 고양이에게 날 생선을 먹이니, 성격이 바로 바뀌어 잘 할퀴었다.

29. 한약이나 각종 약재도 그 질과 특성 따라 먹으면, 바로 영향을 받아서 몸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진다. 음식도 고기류를 먹느냐, 채소류를 먹느냐에 따라 각각 영향을 받는다.

30. 산삼을 먹으면 몸이 뜨거워진다.

31. 맵고 강한 음식을 먹으면,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몸이 그 같은 영향을 받는다.

32. ‘보는 것’도 그러하고, ‘듣는 것’도 그러하다.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33. 토질에 따라서 식물도 강하게, 혹은 약하게 크다.

34.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 마음 밭에 따라서 성격이 좌우된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심어져 자기 성격대로 자라난다.

35. 소는 초식동물인데 동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면, 체질상 광우병이 생긴다.

36. 사람의 체질은 ‘흙’에 속해 있다. 사람이 흙에 가깝고, 흙으로 창조됐기 때문이 아니다. 흙에 가까운 체질로 창조됐다는 것이다. 고로 사람에게에는 흙에서 자란 과일류, 곡물류, 채소류가 체질에 맞고 몸에 좋아서 몸이 건강하게 되고, 병도 훨씬 덜 걸린다. 그래서 건강원에서는 채소를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하며, 채소를 먹게 하여 치료를 하기도 한다. * 여기까지 말하면, 육적인 것에서 끝난다. 항상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다.

37. 사람은 ‘영적 체질’로 창조되었다. 고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육도 영도 같이 커야 영적인 병이 안 생긴다.

38. 자기 체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39. 자기 체질이 제대로 돼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바로잡기다.

40.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될 체질인데 차갑게 하면, 육신에 병이 바로 온다.

41. 육신이 무너지면, 영도 떠나야 된다.

42.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다. 고로 자연을 통한 인간의 섭리가 기본이다. 인간이 자연에 맞추지 않으면, 육도 마음도 영도 망친다.
43. 자연은 인간의 육체를 확대시킨 것이다.
44. 인간이 자연을 변질시키면, 자기 육신이 자연으로 인한 영향을 못 받아서 이상이 생긴다.
45. 문화도 변질시키면 병든 문화가 되어, 그 병든 문화가 결국 인간을 병들어 쓰러지게 한다.
46. '육성'이 강하면, '마음과 생각'이 그 육성에 의해서 결국 '영'까지 육성으로 행하여 망하게 된다. 육성은 영을 망하게 하니, 아예 육성을 없애야 된다.
47. 사탄은 먼저 '육'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마음과 정신'을 잡아당긴다. 이 세상은 육의 세상이니, 사탄은 우리 육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유인한다.
48. 성자는 먼저 '영'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마음'과 '육'을 잡아당긴다.
49. 사탄은 혼자서 유혹하지 않는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혹한다. 음식을 먹으면, 음식으로 유혹하여 친다. 명예나 돈이나 환경에 따라 행하면, 그것을 가지고 친다.
50. 사람은 보고 들을 때마다 '육성'과 '영성'이 뇌에서 공전과 자전을 한다. 강한 쪽으로 공전하고 자전하게 된다. 기도해야 그 힘을 받고 마음이 영적으로 강해져서 영성으로 가게 된다.
51. '육성'은 자기 마음의 자유의지다. 고로 자기가 버려야 된다. <영>이 '주인'이 되어, 자기 <육>을 '종'처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영이 망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이 사탄의 밥이 되고, 원수의 밥이 된다.
52. 사탄을 멸절시키는 방법은 '육성'을 죽이고, 오직 성자의 말씀대로 '영성'으로 행하는 것이다.
53. 기도해야 '영'이 '육과 마음과 정신'을 다 통치한다.
54. '육성'은 결국 자기 시체만 남기게 한다.
55. '육적 생각'을 안 하고 '영적 생각'만 하면, 사탄 불가침이다.
56. 주께 맡기고, 일절 자기가 끌지 말아야 된다. 주는 산 영이 되어 살아 있는 성자와 다리를 놔 준다. 고로 주께 맡기는 자는 성자와 교통하며 살게 된다.
57.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은 '기도 방해'다. 기도할 때 피곤해서 졸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각종 인식관으로 우리 스스로 퇴패하게 만들어 기도를 못 하게 한다.
58. 사탄은 피곤하여 잠을 자게 하는 등 각종 이유를 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함으로 결국 우리 영혼을 굶주리게 하고, 영혼의 목을 조르고, 다른 데로 끌고 간다.
59. 피곤함을 잠으로 풀지 말아라. 그러면 더 피곤하다. 기도해서 '정신'과 '영'으로 풀어라. 피곤함을 푸는 것은 마찬가지다.
60. 육신이 건강하다며 편안하게 계속 앉아 있으면, 기능이 약해져서 결국 병이 온다. 피곤하지만 매일 뛰는 사람이 건강하다.

61. 신앙도 그러하다. 자기는 괜찮다며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자는 결국 병든 체질로 뒤바뀐다.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그제야 몸부림을 친다.

62. 누구든지 기도 시간에 자기 영이 강해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다른 데 시간을 쓰면, 영계에 가서 확인하나 마나 사탄이 그 영혼을 끌고 다니며 때린다. 마치 불량배들이 여자를 외진 곳으로 끌고 가 겁탈하고 때리듯 한다.

63. 제시간에 자기 영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 영이 빛 가운데 있고, 오히려 사탄이 오면 공격하여 멸한다.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64. 신랑 되신 성자를 사랑하여 낳은 자가 '우리 영'이다. 자기 영을 키우고 가르쳐서 영원히 존재하게 해야 된다.

65. 육신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기 영을 '성자 사랑의 대상체'로 못 만들면, 성약역사가 진행되는 1000년 동안 영계에서 교육받고 만들기도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영을 아예 '성자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66. 육신이 하나님과 성자 앞에 '절대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다.

67. '육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살면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면, 그 '영'이 하나님과 성자의 절대 사랑체로 변화된다. 그러다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영적 창조 목적>을 이루며 영원히 살게 된다.

68. '육'이 구원자를 믿고, 그를 통해 재림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 <육적 휴거>다. 이 상태에서 '영'이 온전한 휴거를 이루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야 영이 <영적 휴거>를 이루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69. 부모가 자식을 낳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느낌'도 다르고, '사랑의 차원'도 다르다. 하나님도 그러하다. 하늘의 천사들을 사랑하는 것과 천국과 다른 세계, 곧 지구 세상을 창조하여 육으로 만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느낌'도 다르고, '사랑의 차원'도 다르다. 하나님은 '영으로 사는 천국의 상대 세계'인 '육체 세계,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어 '사랑의 대상체'를 만드셨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 땅에서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로 인해 '영'을 변화시켜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영적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된다.

70. <성약역사> 때부터 성경말씀대로 '천 년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다.

71.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적 창조 목적>이다. 이들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영을 변화시켜 <영적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된다.

72. 성약역사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땅에서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삶으로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산다. 그 행위대로 영을 변화시켜 <영적 창조 목적>까지 이룬다.

73. 한 남자가 있다 하자. 자기 집에 여자 형제들이 많은데, 왜 혈통이 다른 한 여자를 사랑하며 기르겠느냐. 육체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다.

74. 천국에 천사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세계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겠느냐. 최고의 목적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목적의 대상이 된 자만 안다.

75.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타락을 함으로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76. <성약역사>가 오고, 성자가 사명자를 통해 ‘사랑의 말씀’을 주시면서부터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다.

77. 잘 때는 자고, 깰 때는 깨라. ‘때’를 지켜라!

78. ‘전쟁의 나팔’을 불었는데 언제 불었냐고 한다. 잠자는 자는 모른다. 이와 같이 ‘시대 나팔’을 불었는데, 잠자는 자는 모른다.

79. 혀를 금하여 조심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못 보고 나쁜 날을 본다.

80. 암세포 하나를 못 막으면,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되어 결국 죽음을 맞는다.

81. 불신, 오해, 악평, 서운함, 불평, 각종 죄들을 그냥 놔두면, 자꾸 퍼진다. 결국 영이 고통을 받고 영적 죽음을 맞는다.

8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의 욕을 통해 행한 것인데, 보낸 자 스스로 행한 것으로 안다. 하나님과 성자가 행하셨다는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면, 그는 생명의 길을 못 간다.

83.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식구는 노아가 하자는 대로 했기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그 지역을 다 멸하셨어도 노아의 여덟 식구는 살았다. 그 후에 하나님은 또 노아를 중심하여 역사를 펴 나가셨다. 이때 ‘함’은 아버지 노아가 하는 일을 절대 믿었어야 했다. 노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믿었어야 했다. 그러나 욕적으로 생각하여 노아가 하는 일을 막았다. 하나님이 노아를 쓰고 행하시는 것을 막은 것이다. 함이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 함을 저주하셨다. / 이 시대도 그러하다.

84. ‘제자리만 도는 사랑’은 희망이 없다. 고로 성자는 그 사랑을 기다리지 않으신다.

85. 성자는 ‘차원 높이는 사랑’을 희망으로 기다리신다.

86. 말씀 차원, 기도 차원을 모두 높여야 더욱 희망이 이루어진다.

<2014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이 그대로 보이고, 그 혼과 영도 보이고, 그 육신도 초자연적 현상에서 보인다.

2. 육신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낸다.

3. 형제들을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보아라. 그러면 기쁨거리가 되고, 심정의 눈물을 없애 주는 자가 된다.

4.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고로 사탄 수만 명이 와도 자기가 마음 문을 안 열어 주면, 자기가 이기는 것이다.

5. 자기 마음의 성벽은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뚫는다.

6. 마음이 변하는 만큼 마치 과일이 썩듯이 마음이 썩었다는 것을 알아라.

7. 하나님은 믿고 성자는 믿겠는데,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는 못 믿겠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과 성자도 그리 말하는 그를 믿어 주지 않으신다. 보낸 자를 믿는 만큼, 하나님도 성자도 그를 믿어 주신다.

8. 성경은 수리적으로나 공식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것이나 그같이 푸는 것이다.

9. 성경은 하나님과 성자가 말씀하신 심정과 뜻으로 풀어야 된다.
10. 가령, 어떤 환경을 보고 평가해도 틀리다. 어떤 것이 되어진 것을 보고 평가해도 틀리다. 순리가 아닌, 무력으로 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11.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보고, 그때 상황을 알아야 된다.
12. 고로 성경도 그때 하나님의 심정과 상황, 성자의 심정과 상황에 맞춰서 풀어야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만물을 가지가지마다 다 좋아하시고, 사람도 다 좋아하신다. 다만 성삼위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안 좋아하신다.
14. 자기중심으로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려고,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하게 하여 몸부림쳐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랑하며 하늘의 일을 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15. '하나님의 한'을 배워라. 그래야 고통의 길을 가지 않게 된다.
16. 사탄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것도 사탄의 수법이다.
17.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기 뜻을 세우고 이루려 한다.
18.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이미 판국이 기울어져 결정된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막았다.
19.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가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그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사명자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명자가 하는 일을 못 하게 막는다.
20. '의미'를 모르고 '공식'이나 알고 말하면, '심정' 모르고 말하는 자와 똑같은 자다.
21. 성경의 <한 때 두 때 반 때>도 '근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실행하는 때'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것을 '인간의 때'로 계산하여 풀어야 된다. 이는 '사명자를 두고 정한 때'다. 사명자가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실행하니, 사명자만 그 때를 안다.
22. 하나님의 때는 세상에 뜻을 두고, 거기에 맞춰 돌아간다.
23. '성경의 핵심'을 푼 자는 '성경'을 다 푼다. 핵심 역사다. 핵심을 푼 자가 하나님이 보낸 시대 사명자다.
24. 사람의 핵심은 '뇌'다. '마음'이다. 고로 그 사람은 '마음을 풀어 준 자의 것'이다.
25. '핵'을 차지한 자가 '전체'도 차지한 자가 된다. '핵'은 <성자>이시다. 또한 <시대의 사명을 받고 온 자>다.

<2014년 3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에게 해를 준 자에게로 자기 악심이 흘러간다.
2. '악심'은 빨리 흘러 크고, '선심'은 느리게 흘러 크다.
3.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된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게 하는 것이 최고로

안전하다.

4. 피해자는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자의 행위의 갑절로 갚아 주신다.

5. 왜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할까? 자기를 구원하고 휴거되게 하는 데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지금 이때는 그 행위대로 결정하여 양과 염소를 골라 쪼개는 때다.

7. 지금 염소가 된 자는 다시 양이 될 수 있는 때가 없다. 끝났다.

8. 자기가 자기를 염소로 만들었고, 자기가 자기를 양으로 만들었다.

9. 누구든지 양과 염소로 결정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는 중간 과정에서 결정된다. 자기 생각과 행위와 삶으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한다.

10. 양은 '선'을, 염소는 '악'을 비유한 말이다.

11. 하나님은 절대 '악'을 소멸하신다. 고로 자기가 <회개>로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소멸해야 된다.

12.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 '악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 고로 '악'은 꼭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13. '자기 죄'로 자기 영이 사망으로 간다. '남의 죄'로 자기 영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14.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15.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해 났으면, 다시는 사망으로 안 간다.

16. 가룟 유다도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해 놓지 못했기에 사망으로 갔다. 왜 구원받지 못할까? 자기를 구원하는 데에 해당되는 것을 자기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17. 섭리사에 왔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을 보아라. 섭리사에 있을 때 자기 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휴거시키지 못했기에, 또 세상과 사망과 음부로 간 것이다.

18. 자기 생각과 행위와 삶을 돌아보아라. 자기 생각과 행위와 삶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 영이 구원받지 못하여 사망으로 간 것이다.

19. 자기가 못 넘어가게 성벽을 높이 쌓아 놔야 자기 육도 영도 완전히 구원한 것이다.

20. 섭리사에 자기 영을 '완전히' 구원해 놓고 휴거시켜 놓은 자들이 많지 않다. '완전함'이란,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 상태다.

21. 자기 영을 '완전히' 구원하고 휴거시킨 자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다시는 흑암으로 가지 않는다.

22. '완전히' 구원되지 못한 자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때에 따라 또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흑암으로 갈 수도 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모두 자기를 '완전히' 구원해 놓지 않았기에 다시 세상과 흑암으로 간 것이다.

23. 자기 영혼을 '완전히' 구원시켜라. '완전히' 휴거시켜라.

24. 옛것을 ‘완전히’ 버린 자가 ‘완전히’ 구원받고 휴거된 자다.

25. 다시는 세상과 흑암으로 가지 않고, 다시는 타락되지 않고,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 자가 ‘완전히’ 구원받고 휴거된 자다.

26. 완전히 구원받고 휴거된 영혼은 ‘추수한 곡식’과 같다. 알곡이 되어 추수하면, 그것으로 완성이다.

27. 완전히 구원하고 휴거시키지 못한 영혼은 ‘농사짓는 과정 중에 있는 곡식’과 같다. 농사짓는 과정 중에 있는 곡식은 중간에 결실하지 못하고 끝날 수 있다.

<2014년 3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전체 중요

1. 성자는 내가 안 물어보면, 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신다. 내가 물어보면, 성자의 생각을 말씀하신다. * 기도하기 전에 성자에게 물었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대화를 하실 것인지, 잠언을 쓰실 것인지 물었다. 성자의 프로그램대로 해야 하니,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2. ★ 육계에서 영계와 통하려면, 육계에 있는 우리가 ‘먼저’ 영계와 통하려 성자를 부르고 찾아야 된다.

3. 영계는 육계보다 차원이 높다. 그러나 영계에서 먼저 육계와 통하려면, 통해지지 않는다.

4. 귀머거리는 안 들리니, 아무리 불러도 못 듣는다. 고로 안 통한다.

5. 귀머거리가 먼저 귀 안 먹은 자를 부르면서 통하려고 해야, 귀 안 먹은 자가 금방 듣고 반응을 보인다. 고로 통한다.

6. 귀머거리가 원하는 것을 대답해 주려면, 말이 필요 없다.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을 줘야 통한다.

7. 성자는 영이시다. 성자가 인간을 불러도 인간은 못 알아듣는다. 말로 해도 안 통하니, 만물을 사역자로 삼으시고 손짓, 발짓, 몸짓을 하며 보여 주시고, 심령에 감동을 주며 하실 말씀을 전달하신다.

8. <육신>은 ‘영의 음성’을 못 듣는 귀머거리와 같다. <육신>은 그같이 창조되었다. 만일 <육>이 ‘영의 음성’을 듣고 살게 창조되었다면, ‘세상 육계의 삶’을 살라, ‘영계에서 들려오는 말’을 듣고 살라 정신이 없다. 고로 정상이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육>은 ‘육계의 말’만 듣게 창조해 놓으셨다.

9. ‘영계의 소리’를 어떻게 들겠느냐. 그래도 <육>에서 최고로 신령하고 예민한 ‘마음, 정신, 생각, 느낌’으로 듣는다. 고로 <마음의 귀>라 한다.

10. <육의 귀>는 영계에서는 귀머거리 같아서 ‘영계의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나 ‘말’은 할 수 있다. ‘입’으로 성자나, 자기가 원하는 천사나, 영들을 부를 수 있다. ‘입’으로 불렀으면, 그다음에는 <육의 귀>는 제쳐 놓고 <마음의 귀>로 ‘영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11. <마음의 귀>는 신령한 자일수록 발달되어 있어 ‘영계’를 잘 느끼고, ‘영계의 소리’를 잘 듣고, 잘 깨닫는다.

12. ★ 항상 육계에서 먼저 영계에 영으로 계시는 성자를 불러라.

13. 성자는 육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바로 아신다. 진실로 진정 필요하여 성자를 부른다면, 성자는 곧 대답하신다.

14. 정신일도 하여 마음을 기울일 때, ‘성자의 소리’가 은밀히 들려온다. 더 집중할 때는 더 확실히 들려오고 깨달아진

다.

15. 합당한 기도를 집중해서 깊이 할수록 ‘영의 말, 성자의 말’이 더 잘 들려온다. 거기서 더 깊이 기도하여 자기 혼이 더 높은 영계의 차원에 올라가면, ‘영들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기도 하고, <마음의 눈>으로 영계의 상황이나, 영들이나, 천사나, 자기 영을 보기도 한다.

16. 자기 영이라도 <육>으로는 ‘자기 영의 소리’를 못 듣는다. 자기 영과 대화하며 깊이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야 ‘자기 영의 소리’를 <육의 귀>가 아닌, <마음의 귀>로 듣게 된다.

17. 기도하고 성자께 간구해야 영계와 통한다.

18.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훨씬 발달됐다. <영>들은 <육>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

19. <영의 삶>은 <육의 삶>과는 차원이 다르다. <영>은 날개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영의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다닌다. 그러나 <육>은 기구를 의지해야 공중을 날 수 있다.

20. <영의 세계>의 ‘영’들이 쓰는 기구도 <육의 세계>에서 ‘육’들이 쓰는 것과 다르다. 훨씬 이상적이다.

21. <육신>은 칼로 찌르고 싸우면 죽는다. 그러나 <영>은 칼로 찌르고 싸워도 안 죽고, 상처만 나고 아픔만 겪는다.

22. <영>이 다른 영한테 맞고 고통을 받으면 상처도 입고, 고통도 받고, 자기를 해한 영을 두려워한다. 심리는 <육신>과 같다.

23. ‘영’에게는 <영의 법>이 있다. 누가 ‘자기 육’을 해했다 해도, 영이 쫓아가서 ‘자기 육을 해한 그 사람의 육’을 해하는 것은 못 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았다.

24. ‘자기 영’이 ‘자기 육에게 해를 준 사람의 영’에게 해를 줄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영의 법>이 있어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생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25. 사탄, 마귀, 귀신들은 <영의 법>을 어기고 생명들을 해하고 괴롭힌다. 악한 영들끼리도 영계에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 그러면 <영의 법>에 어긋난 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26. ‘자기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게 ‘좋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해가 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27. 세상에서 악한 자들은 ‘살인’도 하고, ‘각종 악한 짓’을 한다. 그 대신 자신도 <법>에 의해 ‘해’를 받는다.

28. <법>을 지켜야 자기도 ‘해’를 받지 않는다.

29. <육계>에서는 법을 어기면 ‘자기 육’이 해를 받고, <영계>에서는 법을 어기면 ‘자기 영’이 해를 받는다.

30. <영계>에서 ‘악한 영’은 살인을 하고 다니기도 한다. 이는 <영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고로 그 ‘영’은 잡혀서 행위대로 형벌 기간이 정해져 그 기간 동안 고통의 형벌을 받는다.

31. <자기 육>이 어떤 사람과 싸우면, <자기 영>도 자기 육의 편이 되어 그 사람과 싸운다. 이와 같이 <자기 영>에게 적이 있으면, <자기 육>도 같이 그들을 적으로 삼고 기도하여, 하늘의 천군들이 협조하여 같이 싸우게 해 줘야 된다. 육이 자기 영을 도와 기도하면, 성자는 공의롭게 천군들을 앞세우고 싸워 악을 멸하신다.

32. 꿈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와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 때가 있다. 이는 육의 세계를 반영한 계시이기도 하고, 자기 육과 혼과 영의 입장이 그러하다고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33. 꿈에 사탄, 마귀, 귀신들이 평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가장해서 속여 나타나 생시에 혼동하도록 유혹하기도 한다. 평소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꿈에 이상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사탄이 가장해서 나왔는지 꼭 분별해야 된다.

34. ‘꿈에 보이는 것’이 <성자가 주시는 계시>라면, ‘이와 같이 이리하다.’ 하며 현실을 <비유>로 보이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35. <꿈의 배경>은 ‘영계에 실제 있는 것’도 있고, ‘순간 꾸며서 보인 것’도 있다.

36. 꿈에서는 같은 장면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 나는 이 잠언을 늘 씹는다. 이 비법을 안 쓰면, 영계의 성자와 못 통해. 항상 욕이 영을 먼저 찾아야 된다. 항상 인간이 성자를 먼저 찾는 것이다. 먼저 산을 올라타듯, 육계에서 욕이 먼저 성자를 찾는 것이다.

<2014년 3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다고 희망이겠느냐. 성자의 일을 받고 그 일을 행해야 희망과 기쁨이다.

2. 따뜻한 봄이 온다고 그냥 얻을 것을 얻겠느냐. 성자가 주는 일을 받고, 행할 것을 행해야 얻게 된다.

3. 성자가 우리에게 ‘할 일’을 줘야 우리가 행할 수 있다.

4. 기도하여라. 기도해야 ‘성자가 주는 일’을 받을 수 있다.

5. 성자에게 할 일을 받았으면, 그 일을 행해라. 그리함으로 얻어라.

6. 행하는 자만 얻는다.

7. 첫째, 행하려면 ‘할 일’을 찾아라. 할 일을 찾으려면 기도해라. / 둘째, 얻으려면 ‘성자가 주신 일’을 행해라. → 이것이 순서다.

8. (다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반드시 실천하기 전에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가 ‘행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실천할 지혜와 힘과 능력과 영력’을 같이 주어 행하게 하신다. / 둘째, ‘행할 것’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그래야 얻는다.

9.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성자가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욕과 혼과 영이 변화되고, 육적으로도 얻고, 영적으로도 영원한 것을 얻어 쓰게 된다.

10. ‘실천하는 뇌, 행하는 뇌’가 굳어 있으면, 생각은 해도 몸으로는 잘 행해지지 않는다.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고 확실한 방법이다.

11. 제시간, 제때에 행해야 얻는다.

12. 늦게 행하면, 행해도 아예 못 얻는다. 얻어도 조금밖에 못 얻는다.

13. ‘제 할 일’을 ‘제시간’에 하는 것이 <수고한 대로 얻는 최첨단의 방법>이다.

14. ‘제 할 일’을 ‘제시간’에 안 하고 늦게 하는 사람은 ‘옛날식 수동 소총’을 가진 자와 같다. ‘현대식 자동소총’을 가진 자는 연발로 총알을 쏘는데, ‘옛날식 수동 소총’을 가진 자는 한 발씩 장전하면서 총알을 쏘야 하니, 적에게 패한다.

15. 생활 가운데 자기의 적 사탄에게 이기려면, '생활의 자동화기'가 되어 성자가 말씀하신 것을 '제때 즉시' 행해야 된다.
16. 제시간, 제때에 행하는 '자동식 지체'가 돼야 '빨리' 얻고, '많이' 얻게 된다.
17. 느리면, 사탄이 이긴다. 그리고 네 것을 빼앗아 간다.
18. 하루를 살 때도 한 가지를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연발총'같이 즉시 다음 것을 행해야 된다. 이런 자가 '자동소총'과 같은 자다.
19. 생명을 전도하여 가르치고, 이어서 관리하여 성장하게 하고, 이어서 사명을 주면서 실천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자가 '자동무기 같은 자'다.
20. 새벽에 일어났으면 즉시 씻고, 이어서 기도하고, 이어서 하루의 삶을 살아라. 이런 자가 '자동무기 같은 자'다.
21. 자기 할 일이 있는데도 '제때' 안 하고 '아예' 안 하면, 결국 좃대가 옮겨진다.
22. 뇌가 굳어서 '생각'이 느린 사람은 '행동'도 느리다.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해라. 그러면 '느린 뇌'가 즉시 고쳐진다.
23.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변화된다.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24. 주기는 다 주는데, 행하는 자만 얻는다.
25. 행하되, '제때' 행해야 된다. 행하되, 먼저 기도하여 '행할 것'을 얻어야 된다.
26. 만사에는 '때'가 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때'가 있다.
27. 생각났을 때가 '행할 기회'다.
28. 생각난 것을 행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은 사람'이다.
29. 생각이 안 나면 행할 수 없으니, 생각나게 기도해야 된다.
30. 기도하면, 뇌가 작동된다. 그때 '성자가 원하시는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31.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에는 뇌가 발달했다. 그러나 '실천하는 뇌'는 발달되지 못하여 차원이 낮고 둔감하다.
32. '실천하는 뇌'가 굳으면 게으르다. 게으른 자는 <마음>은 부자이고, <생각>은 재벌인데, <행동>은 가난하다.
33. '실천하는 뇌'를 작동시켜라. 그러려면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하여라.
34. 게으른 사람은 행하지 않으니, 복을 타고났어도 얻지 못한다.
35.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빈곤하고, '육적'으로도 빈곤하다.

36. 실천하면, 즉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빈곤이 없어진다.
37. 최고로 게으른 사람은 말씀해 줘도 안 하는 사람이다.
38. <구상>은 오직 하나님, <감동>은 성령님, <생명 보호>는 성자, <실천>은 우리다.
39. 자기가 구상하면, 성자가 할 일을 안 주신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움직이고, 성자와 일체 되어 성자가 친히 우리 몸을 쓰고 행하게 해야 된다.
40. '실천할 것'을 자기 방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기도하여 성자에게 할 일을 받고 행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을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
41. <실천할 것>은 첫째, '영적'으로 봐야 된다. 둘째, '앞날'을 내다보고 분별하여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얻는다.
42. <봄>은 '실천하는 계절'이다. 이때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며 실천해야 된다. → 그래야 변화된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찾고 얻게 된다. → 그래야 '삶의 휴거', '생활의 휴거'를 이룬다. → 그러므로 '혼과 영이 휴거'된다.
43. 생활 가운데 '혼과 영의 휴거'만은 매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44. '혼과 영의 휴거'를 매일 잊지 않고 행하는 자만 휴거되고, 휴거의 차원을 높이게 된다.
45. 모두 놀지 말고 '제때' 행해라. '제때'가 '만사의 제철'이다.
46. 일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라. - 기도 없이 일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지혜 없이 하니 성자의 뜻대로 못 한다. - 기도 없이 일만 하면, 예리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하다.
47. 일할 때는 사탄을 물리치면서 해야 되니, 기도하여 신령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하고 얻은 것을 뺏기지 않는다.
48. <기도>는 '영적인 일'이다.
49. 기도해야 성자에게 '할 일'을 받게 된다.
50. 성자에게 할 일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성자와 선생과 함께 완전하게 의논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수고한 대로 얻게 된다.
51. 기도해야 일이 잘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일할 때 성삼위가 함께해 주시고, 천사도 함께해 주고, 사람들도 함께해 주니, 일이 잘된다.

<2014년 3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언이 없는 말은 '심정'이 없다.
2. 사언이 없는 말은 '죽은 말'이다.
3. '육신'이 변화돼야 '육'이 휴거되고, 그에 따라 '혼'이 변화된다. '혼'이 변화돼야 '혼'도 휴거되고, 그에 따라 '영'도 변화되어 휴거된다.
4. 100% 변화돼야 그다음 단계의 문이 열린다.

5. 하나님은 ‘만유의 법칙’대로 인간에게 행하신다. 1층을 완성해야 그 터전 위에 2층 건물을 짓게 되듯이, 신앙에서 육과 혼과 영도 그러하다. ‘육’이 변화돼야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돼야 ‘영’도 변화된다. 100%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여라.
6. ‘휴거’가 실감 나지 않는 자는 <휴거 길>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거 길>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휴거 100선’도 못 뚫었다는 것이다. 휴거를 알고 휴거의 삶을 진행하는 자는 매일 ‘휴거’를 실감한다. 휴거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 있으니, 휴거된 자는 휴거를 실감한다. 휴거는 ‘실존’이지, 하나의 ‘개념, 관념, 생각’이 아니다. <휴거>는 ‘지금 진행 중’이다.
7. 말씀을 듣고 행해야 휴거를 실감하고,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된다.
8.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변화되고 이루어진다.
9. 조각가가 배우고 행해야 조각물이 변화되어 멋진 작품을 완성한다.
10. ‘미완성 세계’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11. ‘미완성된 자’에게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12.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를 완성시키지 못한 자에게는 항상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성의 유혹, 타 종교의 미혹과 위험이 따른다.
13. ‘휴거되지 못하고 미완성된 자’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14. ‘목적지에 가지 못한 자’는 목적지까지 가는 중에 항상 사고나 문제의 위험 속에 있기 마련이다.
15. 오직 ‘완성된 자’만이 걱정과 염려가 없고 완전하다.
16. 가령 경기의 승패를 앞두고 겨루고 있다 하자. 이는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이므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신앙도 그러하다.
17. ‘온전히 휴거된 영’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기에 마음을 놓는다.
18. ‘목적을 다 이룬 자’만 마음을 놓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먹고 누려라.” 한다.
19. <과정>은 미완성이므로 항상 지키고 관리해야 된다.
20. 신앙이 성장 중인 사람은 미완성 상태다. 고로 항상 사고나 위험이 따르니, 밀착 관리를 해야 된다.
21.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은 다 귀하다. 어떤 돌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나 됐다. 귀한 것이 너무 많아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로 귀하게 여기고 깨닫는 자만 귀한 낙을 누리게 하셨다.
22. 지구가 형성될 때 형성된 돌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알아야 귀한 것과 가치를 알고 귀히 대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
23. 성자에게 물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말 큰 존재이시니, 인간이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하니, “맞다.” 하셨다. “그러면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니,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한다.” 하셨다.

24. 부모는 어린아이이가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같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를 사랑하니 부모도 기뻐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무엇을 주고서, 그것을 받은 자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2014년 3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29. ‘물건’도 ‘사람’도 잘못 만들면 버린다.

30. 물건도, 작품도, 환경도 절대 기술자만이 제대로 만들듯, <인생>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보낸 자를 통해서 제대로 만드신다.

31. 그릇된 비원리의 말로 만들면, 사기꾼, 악한 자, 더러운 자, 타락한 자, 죄인, 수형자, 횡령꾼으로 만들게 된다.

32. 하나님은 만든 것을 보고, 만든 대로 대하신다. 잘못 만들면 ‘심판’으로 대하시고, 잘 만들면 ‘축복’으로 대하신다.

33. 저마다 자기 공력에 따라 만든다.

34. 생긴 대로 대한다.

35. 매일 말씀을 듣고, 새롭게 차원 높여서 만들어라.

36. ‘악한 자’는 사탄들과 같이 악한 자를 만들고, ‘선한 자’는 주와 천사들과 같이 선한 자를 만든다.

37. 주와 같이 자기 육신을 통해 ‘자기 혼과 영’을 <성자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영혼이 신부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서 살게 된다.

38. 기도하여 신령한 자가 되어라!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행하여 자기를 만들어라!

39. 왜 자기를 만들지 않고 노느냐.

40. ‘자기 만들기’다. 이것이 인생이 최고로 할 일이다.

41. 만들고 쓰면서 살면, 만들기 전보다 10000배 귀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쓴다.

42.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든 자는 만들지 못한 자와 비교할 때, 마치 땅속에 있는 돌에 박힌 철을 캐내서 비행기를 만들어 쓰는 것같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43. 자기 육을 가지고, 성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자기 혼과 영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영이 ‘휴거의 영’이 되어 <천국 황금성>에 들어간다.

4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든 자’를 찾으신다.

45.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46. 먼저 ‘자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형제’를 만들기다. 자기 주관과 자기중심을 버리고 성자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만들기다.

47. 다 만든 후에는 ‘부지런히 쓰기’다. 그래야 천국에서도 그 공적이 영원히 남아져 영원히 쓰게 된다.

48. 성자도 주도 '말씀'을 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네 육을 통해 행하여 네 영혼을 천국에 가게 만들어라.

49. 자기 영혼을 만들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50. 물건도, 환경도, 인생도 만들기 전과 만든 후는 비교가 안 되게 무한대로 차이가 난다.

51. 월명동도 만들기 전과 만든 후는 몇 백 배, 몇 천 배가 아닌, 무한대로 차이가 나게 되었다.

<2014년 3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 겪은 대로 심정을 표현하고 행하라는 잠언

1. <육>으로 '육적 차원'에 오르고, <혼>으로 '혼적 차원'에 오르고, <영>으로 '영적 차원'에 오르는 것이다.

2. 뇌에 열불이 나고, 마음이 쭈시고, 뼈가 저리게 고통을 겪거나 배신감을 느껴 뇌신경이 흩어지는 쇼크를 받았을 때를 잊지 말고, 때가 돌아오면 그때 꼭 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며 행해야 된다.

3. 원수 마귀의 악한 몸동으로 쓰이던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며 애간장 태우던 때를 생각하고,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게 해야 된다.

4. 좋아서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던 좋은 날과, 지옥 같은 고통을 받으며 살았던 나쁜 날을 절대 잊지 말고, 현재 그 마음으로 행해라. 그래야 소원이 성취되고, 희망이 계속된다.

5. 과거에 쇠칼같이 예리하게 겪었으면, 나무칼같이 말하지 말아라. 면도날같이 심정 깊이 표현하며 말해 줘라. 그래야 듣는 자들의 뇌에 꽃혀 감동받고, 그들도 예리하게 행한다.

6. 말씀을 전할 때나 시대를 증거할 때도 깊이 심정을 표현해야 듣는 자의 뇌에 꽃혀 확실히 인식하고 따라온다.

7. 행할 때도 불이 나게 행해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8. 무엇을 볼 때도 눈에 꽃히게 확실히 봐야 생생하게 기억한다.

9. 과거에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을 겪은 것은 그로 인해 단련하고, 연단하고, 배우고, 깨닫게 하여 그런 마음으로 생명들을 사망에서 끌어내라고 성자가 계획적으로 겪게 하셨다. 그러니 그때를 잊지 말고, 그때 받은 감동으로, 그때 받은 심정으로, 그때 겪은 지옥 고통을 생각하며 말해 주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얻을 것을 얻고, 얻지 못할 것도 얻고, 희망을 이루고, 성공한다.

10. 자기가 겪고 느낀 대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행해야 성공한다.

11. 모세도 먼저 뼈저리게 겪고 나서, 그 뼈저린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인도했다.

12. 옛날의 배고픔도 잊지 않고, 원수들에게 받은 고통도 잊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행했기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았다.

13. 자신이 성자 안에서 성공해야 원수도 멀하고, 자기도 희망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누리게 된다.

14. 자기를 무시하는 자로 인해 생긴 원한을 풀어 희망으로 만들려면, 지난날 무시당하면서 뼈가 녹고 뇌가 불나게 고통을 겪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 그때를 잊고 살면, 계속 무시당한다. 그때 이를 악물었던 마음으로 행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그 원한을 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무시한 자들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무시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

<2014년 3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뇌>가 없으면,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없다.
2.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하면, 그 뇌는 ‘자기 체질’이 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면, 그 뇌는 ‘하늘에 속한 체질’이 된다.
4. <뇌>는 ‘원체’이며 ‘동체’다. ‘근본체’다. 고로 먼저는 근본체인 ‘뇌’를 만들어 놓고, 그 건강한 뇌에서 나오는 ‘마음·정신·생각’으로 자기를 이끌면서 뇌를 사용하는 것이다.
5. 사람이 쓰는 도구를 필요한 대로 만들어야 생각한 대로 잘 쓸 수 있듯이, ‘뇌’와 ‘몸’을 필요한 대로 만들어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 쓸 수 있다.
6. 방이 어지럽고, 벽이 어둡고, 등불이 호롱불인데 마음이 맑고 기쁘겠느냐. <뇌>가 ‘방’이요, ‘벽’이요, ‘등’과 같다. ‘뇌’를 좋게 만들어야 ‘마음’도 기쁘고 좋게 느낀다.
7. <정신적>으로 설명할 때는 ‘마음이 근원’이라고 하고, <육적>으로 설명할 때는 ‘뇌와 몸이 근원’이라고 한다.
8. ‘뇌와 몸’은 유리병을 만드는 금형 틀과 같다. ‘마음’은 그 틀을 가지고 만든 유리병과 같다. 고로 ‘뇌’라는 틀이 온전해야 ‘마음’도 온전하여 뇌에서 온전한 생각이 흘러나온다.
9. 아무리 ‘마음’이 글씨를 잘 쓰기 원해도 ‘뇌와 몸’의 기술이 유능하지 못하고 자세가 안 좋으면, 작품 글씨를 쓰지 못한다.
10. 아무리 ‘마음’으로 초상화를 잘 그리고 싶어도 ‘뇌와 몸’이 초상화 그리는 기술이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린다. ‘뇌와 몸’이 마음보다 주인이다.
11.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세상의 것으로 습관이 든 뇌를 다 비우고 오직 성자의 생각과 뜻으로 행하면서 살면, 뇌가 온전히 만들어진다.
12. 마치 개발 지역을 가만히 놔두면 만들어지지 않듯이, ‘뇌’는 ‘육’이 보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만들어진다.
13. ‘육’이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해야 ‘뇌’가 좋게 만들어진다.
14. ‘혼과 영’이 영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행한 것을 ‘뇌’로 받아 ‘육’이 행하면, 뇌가 영적으로 만들어진다.
15. <뇌 체질>은 뇌에 인식되어 있는 것과 녹화된 것들을 말한다. 뇌가 이해되지 않으면, ‘뇌의 확대체’인 <몸>을 보아라. <몸>은 ‘뇌의 전개체’다. 곧 뇌의 생각대로 몸이 행한다는 말이다. <몸 체질>을 좋게 고치려면, 좋은 것을 오랫동안 행해야 된다. 이와 같이 <뇌 체질>을 좋게 고치려면, 좋은 것을 오랫동안 보고 듣고 행해야 된다.
16. 월명동 지역을 개발하지 않고 쓰면 별것도 아니게 쓰고 말고, 원시인 마을로 쓰게 된다. ‘뇌, 몸, 마음’도 그러하다. ‘뇌, 몸, 마음’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개발하고 써야 빛을 발한다.
17. ‘육적’으로도 개발하고 ‘영적’으로도 개발해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쓰게 된다.
18. 인간은 동전같이 ‘양면 두 쪽’을 가지고 있다. 한쪽은 ‘육의 쪽’, 다른 한쪽은 ‘영의 쪽’이다.

19. 세상에 온 메시아도 두 쪽을 가지고 있다. ‘인성’과 ‘신성’이다. 육의 쪽을 보면 ‘인간’이고, 영의 쪽을 보면 ‘주’다. 어느 쪽을 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20. 성자도 근본은 절대 신이고 영체이지만, <세상 육적인 것>은 ‘분체의 육의 몸’을 통해 대하고, <영적인 것>은 ‘분체의 영의 몸’을 통해 대한다.

21. 양단을 발달시켜야 된다. 육도 영도 발달시켜야 된다.

22. 육만 발달시키면 육적으로만 크고, 육적으로만 쓴다. 고로 육이 생을 다하면 육으로 끝난다. 영만 발달시키고 성장하면, 육이 약해서 하늘에 속한 것이라도 육이 제대로 못 한다. 고로 육과 영, 양단을 다 발달시켜야 된다.

<2014년 3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23. <하늘에 속한 것>이라도 ‘시대’에 따라, ‘신앙 족속’에 따라 각각 차원이 다르다.

24. ‘신앙 족속의 차원’은 스스로 못 벗어난다. 구약 족속, 신약 족속, 각 종교 족속은 그 차원을 못 벗어난다. 벗어난다고 하나, 그 주관권 안에서의 발전이다. 벗어나려면, 새 시대로 와야 된다.

25. 구약이 신약으로 오지 않으니 6000년 동안 구약 안에서만 발달했지,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26. 신약도 신약 주관권 안에서 2000년 동안 발달된 역사다. 새로운 세계 성약역사로 오지 않으면, 자체 발달된 차원의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27.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새로운 인물’을 보내서 시작하신다. 시대가 발달된 만큼 구원역사도 차원 높여 펴신다. 그러므로 성자는 차원 높여 <새 시대 성약역사>를 펴려고, ‘신랑’으로 다시 오셨다.

28. 어제는 항상 어제다. 오늘에 오지 않으면, 발달되더라도 어제의 차원으로만 발달된다. 오늘이라는 세계에 와야 높은 차원으로 발달된다.

29. 자녀는 자녀권으로만 발달되지, 자녀가 애인으로 발달되지는 않는다. 자녀권 안에서 애인 취급하는 것은 형제끼리 사랑하고 결혼하는 격이다.

30. 애인권, 신부권에 와야 신부권 세계에 속하게 된다.

31.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율법 세계 구약 주관권 역사> - <신약 주관권 역사> - <성약 주관권 역사>를 각각 펴신다. 누구든지 새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시대가 발달돼도 그 차원 급에 머물러 산다.

32. 하나님은 ‘구약권 자체’를 ‘신약권’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이는 ‘노인’을 ‘젊은 처녀와 총각’으로 만들 수 없는 이치와 같다.

33. 역시 ‘신약권 자체’를 ‘성약권’으로 만들지 않으신다. 신약에서는 자녀권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 신약에서 발달돼도 자녀권 안에서의 발달이다. 하나님은 <성약 신부 역사>를 펴실 때, 새로 계획한 대로 ‘깨끗한 새 인물’을 보내어 그를 통해 새 역사를 펴신다.

34. 신부들은 신부 주관권으로 발달하고, 그에 해당되는 뜻을 이뤄야 된다. 그 뜻은 신랑 되신 성자를 맞고, ‘지구 세상 최고의 역사’이며 ‘대망의 사랑의 역사’인 <휴거>를 이루는 것이다.

35. ‘육적인 자들’은 <육에 속한 역사>를 펴고, ‘영적인 자들’은 <영에 속한 역사>를 편다.

36. ‘새 시대’ 앞에 ‘구시대’는 <육에 속한 역사>다.

37. <구시대>는 ‘해가 지는 서쪽’과 같고, <새 시대>는 ‘해가 뜨는 동쪽’과 같다. 서쪽은 영원히 서쪽이고, 동쪽은 영원히 동쪽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지 않으면, 영원히 서쪽에서만 살게 된다. 서쪽에서는 영원히 해가 안 뜬다.

38. 손이나 발이나 귀는 절대 영원히 ‘금단의 열매’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역사도 <구약 신약 성약> 각각이다. 각자 개성으로 보람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의 차원’이 다르고, ‘구원의 차원’이 다르고, ‘영이 변화되는 차원’이 다르다.

39. 같은 천국에 가더라도 세상에서 육신이 어느 차원의 역사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다른 위치로 간다. <구약 천국> 다르고, <신약 천국> 다르고, <성약 천국> 다르다. <성약 천국>만 ‘신부성’이며 ‘황금성’이다.

40. 남자와 여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남자의 구조와 여자의 구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같은 천국이라 불려도 ‘차원’이 다르다.

41. 자기를 ‘높은 차원’에 맞게 만들기 전에는 ‘낮은 차원’에 속해 있기에 ‘높은 차원’으로는 갈 수도 없고, ‘높은 차원’에서는 살 수도 없다.

42. <지옥>과 <천국>은 다르다. <지옥>은 ‘극적인 고통의 세계’이고, <천국>은 ‘극적인 사랑과 기쁨의 세계’다. 세상에서 인간의 ‘육’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곳에 거한다.

43. 1년 365일은 모두 한 해에 속하지만 각각 ‘날짜’도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차원’도 다르다. 반복되는 시간 같지만 모두 흐르는 시간으로 하루하루 차원이 다르다. 네가 행하여 해 놓은 것을 보아라. 날짜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다. <행한 자>는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차원을 높였다. 고로 그 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44. 각 종교인들은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믿는 대상’이 다르거나 ‘믿는 방법’이 달라서 다르게 산다. 고로 <삶>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천국에 가도 지역마다 차원이 구분되어 있다. 낙원도 그러하고, 지옥도 그러하고, 각 영계도 그러하다.

<2014년 3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뇌>를 ‘마음·정신·생각’이라고 이름 지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 ‘정신’, ‘생각’이라고 각각 다르게 부를 뿐이다.

2. 고도로 표현할 때는 ‘정신’으로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어떤 것을 두고 생각할 때는 ‘생각’으로 표현한다.

3. 뇌의 이름이 ‘마음·정신·생각’이다.

4. 사람도 행실에 따라 호칭을 붙인다. 운동을 하면 ‘운동선수’, 예술을 하면 ‘예술가’, 문학을 하면 ‘문학가’, 종교 세계에 살면 ‘종교가’라고 한다.

5. 자기 특성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6. 자기 특성이 없어도 좋으면 이름을 짓는 것이다.

7. 상점 이름도 물건이 있는 대로 이름을 붙이듯, 사람도 자기 행위와 특성대로 이름을 짓는다.

8. 건물도, 어떤 존재물도 생긴 모양대로, 사연대로, 사용하는 대로 이름을 짓는다.
9. 사람도 사연대로, 행위대로 이름을 짓는다.
10. <시계>를 ‘배’나 ‘차’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시계를 배나 차로 쓸 수 없다.
11. 하나님은 한 사람을 향해 뜻을 계획하시고, 그 사람이 그 뜻을 행하면 본 이름 외에 그 행위대로 따로 이름을 또 지어 주셨다.
12. 이름은 보통이어도 명성을 떨치는 일을 하면, 그에 따라 그 이름이 빛이 난다.
13.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시며,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셨다.
14.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앞날을 보고 처음부터 이름을 그에 맞게 지어 주기도 하셨고, 혹은 처음에는 세상에서 짓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쓰여질 때 다시 지어 주기도 하셨다.
15. 한 지역도 개발 전의 이름이 다르고, 개발 후의 이름이 다르다.
16. 나룻배를 개발하면, 항공모함이 된다.
17. 자기도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크게 만들어라. 그리함으로 ‘성자 사랑의 대상체, 신부’가 되어라. ‘천국 황금성을 차지할 휴거의 영’이 되어라. ‘사랑 덩이’가 되어라.

<2014년 3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뇌’ 고치면, 다 고쳐진다.
2. ‘마음’ 고치면, 다 고쳐진다.
3. 먼저 ‘뇌 고치기’, 그다음에 ‘행실 고치기’다.
4. 뇌에서 지시하여 몸으로 행해지니, ‘뇌’를 고치면 ‘행위’가 쉽게 고쳐진다.
5. <뇌>는 ‘기구’다. <마음과 생각>은 ‘뇌에서 분출하고 발생하는 대상’이다.
6. 차가 빨리 안 간다고 하자. ‘엔진’을 고치면 해결된다. 이와 같이 ‘뇌’를 고치면 ‘행실’이 해결된다.
7. 잠 못 자서 졸리고 피곤할 때는 잠을 자고 나면 해결된다. 이와 같이 ‘뇌’를 고치면 ‘행실’이 해결된다.
8. 배고파서 힘이 없을 때는 밥을 먹으면 해결된다. 이와 같이 ‘뇌’를 고치면 ‘행실’이 해결된다.
9.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뇌’ 때문에 그런 것이다.
10. 말을 더듬는 사람은 ‘입’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뇌’ 때문에 말을 더듬는다. 이와 같이 ‘행실’이 그릇된 원인은 ‘뇌’ 때문이다. 뇌가 병들어서다.
11. ‘뇌’를 고치면, ‘마음’이 고쳐지고 ‘행실’이 고쳐진다.

12. 뇌 지능이 높아야 차원이 높아진다.
13. 뇌 지능이 낮으면 ‘열 가지’밖에 안 보이고, 뇌 지능이 높으면 ‘백 가지’가 보인다.
14. ‘뇌’는 인간 자체의 최고의 보화다.
15. ‘뇌 지능’을 높이면, 세상 보화가 보인다.
16.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면, ‘뇌 지능의 신’이 된다.
17. 뇌 지능이 높으면 두 가지를 소유하며 누리고, 뇌 지능이 낮으면 한 가지만 누린다. 가령 1억 가치의 보물이 있으면, <뇌 지능이 높은 자>는 1억을 주고 보물을 사서 놓고 늘 본다. 보물도 보고, 1억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뇌 지능이 낮은 자>는 그냥 돈 1억만 가지고 있다.
18. 지능이 높은 자는 계산을 잘한다. 어떤 일을 두고서 자기에게 보다 좋은 쪽으로 계산하고 행한다.
19. 지능이 높은 자는 ‘판단’을 잘한다.
20. 지능이 높은 자는 ‘분별’을 잘한다.
21. 개발한 지역과 개발하지 않은 지역은 100배, 1000배 차이가 있듯이, 사람도 만든 사람과 만들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22. 개발 안 된 대로 사용하면, 원시인 세계다. 사람도 안 만들어진 대로 살면, 원시인이다.
23. 개발한 월명동은 개발하기 전의 월명동에 비해 100배, 1000배 더 비싸다.
24. 사람도 자기를 만든 후에는 만들기 전에 비해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다.
25. 자기가 생각하면 자기 뇌 지능대로 생각하니, 다이아몬드를 일반 큐빅으로 보고 좋아한다. 성자에게 100% 맡겨라!
26. 세상을 좋아하고, 구시대를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며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자는 마치 큐빅을 고르고 미쳐 행하는 자와 같고, 성자와 주를 택하고 성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값비싼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택한 자와 같다.
27.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는 다이아몬드를 놓고서 큐빅을 택하고 좋아하는 원시인 같다.
28. 사람은 매일 자기 삶에 의해 ‘다이아몬드’와 ‘큐빅’을 놓고서 어느 것을 얻느냐 결정하는 삶을 산다.
29. 희귀 다이아몬드는 손가락 한 마디보다 작는데 300억 이상 값이 나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최고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희귀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을 가져라. 이는 ‘휴거된 자’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다. ‘천국 황금성이 그의 것’이다.
30. 세상 명예, 재물, 권세를 최고로 가진 자도 휴거되지 않았으면 큐빅 인생에 불과하다.
31. 인생은 그대로 두면 가치가 없다.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오직 성자의 말만 듣고 가는 것이다.

2. 성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한다. ‘신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3. 성자가 말씀하셨으면, 가는 것이다.
4. 항상 어떤 일을 놓고서 두 패로 갈린다. ‘찬성과 반대’ 두 패다.
5.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반대하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되고, 찬성하는 쪽에서 보면 찬성하는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된다.
6. 이는 마치 하나의 돌에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각각 다른 방향에서 다른 형상을 보는 격과 같다. 이쪽에서 보면 이 형상이라 하고, 저쪽에서 보면 저 형상이라 한다. 이때는 보다 더 좋은 쪽을 택해 세워야 된다.
7. 같은 일을 두고도 의견이 두 개로 갈린다. 그때 확인하면, 한쪽은 현재만 보고 계산하니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한쪽은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산하니 저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8. 같은 일을 두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며 다투었다. 그 실상을 보니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의 생각 차원은 ‘1급’, 다른 한 사람의 생각 차원은 ‘2급’이었다.
9. 성자가 말하면 그 말대로 해야지,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마다 자기 뇌 지능대로 말한다. 고로 헛갈린다.
10. 사람에게는 저마다 ‘자기 취향’이 있다. 고로 자기 취향대로 원하고 택한다.
11. 자기 취향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과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원한다.
12. ‘자기 취향’은 ‘자기 멋’이다.
13. 사람들은 자기 뇌 차원, 자기 체질, 자기 마음과 육체가 길들여진 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며 산다.
14. 성자의 취향대로 살아야 크게 얻고 천국이다.
15. 성자 취향과 성자 체질대로 해도 자기 체질과 취향에 맞다.
16. 자기 지능대로 자기 취향이 생긴다.
1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취향대로 살아야 최고 이상적인 취향을 가지고 최고 이상적인 삶을 산다.
18. ‘어렸을 때의 취향’과 ‘성장했을 때의 취향’이 다르다.
19. 사람은 그 환경에 처한 대로 취향이 생긴다.
20. 자기 행실대로 자기 취향이 길들여진다.
21. 자기 수준대로 자기 취향이 생긴다.
22. 성자의 취향대로 살면, 언제 어디를 가든지 합당하다. 후회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1. ‘성자의 뜻에 의해 열리는 문들’이 차원으로 있고, ‘평소에 자기가 원하는 곳 앞에 열리는 문들’이 있다. 열쇠는 자기에게 있다. 이 문들은 자기가 ‘책임분담’을 하면 열린다.
2. 기성에서는 ‘책임분담’을 안 배운다.
3. 어릴 때는 주 옆에 따라다니니, 책임을 줄 만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기성은 새 역사 앞에 어린 역사이니, 그리 책임이 없다.
4.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책임’이 많다.
5. 새 역사 성약역사, 신부역사는 ‘책임역사’다.
6. ‘역사를 낳는 책임분담’은 크고도 크다.
7. ‘기도’로 성자의 마음을 받기도 하고, 성자와 일체 되기도 한다.
8. 사랑하면 마음에 ‘사랑’이 심어지고, 미워하면 마음에 가시나무가 심어진다.
9. 진정 사랑한다면, 그 한 사람만 생각나는 것이다.
10. 주를 진정 사랑하면, 오직 ‘주’만 생각난다.
11. 사람들은 주를 믿으면서 구원만 받으려 한다. 주를 사랑하는 목적은 ‘사랑’이다. 고로 주는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보고 구원한다.
12. ‘주’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교회만 다니고,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있다.
13.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참된 구원’이다.
14. ‘사랑의 구원’은 자기가 주의 사랑의 팔에 매달려 가는 것이다.
15. ‘신앙’이 깨어나도 ‘사랑’이 깨어나지 않으면, 성자와 주와 사랑의 교통을 하지 못하고 겉 구원만 이루는 자다.
16. ‘사랑의 물’과 ‘사랑의 성령’으로 거듭나라.
17. 어느 시대든지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과 성자가 땅에 보낸 구원자를 어떻게 대하고 행했는지’다.
18. ‘말해서 아는 것’은 <1단계 심정>이고, ‘말 안 해도 아는 것’은 <2단계 심정>이다.
19. 먼저 ‘뇌와 정신의 차원’을 높여야 ‘행실의 차원’도 높인다. ‘행실의 차원’을 높여야 ‘혼과 영의 차원’도 높인다.
20. 모르는 자들은 기다리던 성자가 오셨는데도 계속 기다리기만 한다. 성자는 영으로 오신다. 땅에서 택한 자의 육신 쓰고 오신다. 고로 영에 속한 자들만 알고, 성자와 통하는 자들만 안다.

<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성약역사>는 ‘신부역사’라서 ‘사랑 말씀’도 깊은 것이다.

22. <신부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다. ‘주고받으며 수수관계를 이루는 사랑’이다.
23. ‘메시아라서 사랑하는 사랑’은 마치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라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다.
24. ‘따르는 자가 주권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그와 같이 살려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25. <사랑>에는 그 가짓수가 많다. 존경해서 하는 사랑, 은혜 받고 하는 사랑,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친구 사랑이 있다. 그리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
26. <성약역사 사랑의 문>은 성자를 신랑으로 보고,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과 몸으로 열어야 열린다. / 본체가 그와 같은 조건으로 <성약역사 사랑의 문>을 열었다.
27. <성약역사>는 연인을 사랑하여 같이 살면서 일체 되어 사는 역사이며, 구원도 그 차원으로 이루며 뜻을 편다. 고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성자와 같이 못 산다.
28.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주니, 신부도 신랑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신부는 자기가 신랑이 좋아서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신랑에게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약 신부역사>에 온 자들도 자기가 좋아서 자기의 사랑을 성자에게 줘야 된다. 자기가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자기 마음을 성자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자만 ‘성약역사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이고, ‘성약역사의 주인공’이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는 사랑은 항상 인간이 ‘대상’이 되어서 하는 사랑이다.
3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주체’가 되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항상 ‘대상’이 되어 삼위를 사랑한다.
31. 하나님이 계획하신 맨 마지막 역사는 <사랑의 역사>로서 ‘사랑이 중심이 된 구원역사’다. 마지막 역사를 통해 ‘사랑의 복직’을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32. 처음에는 ‘기르기’다. 그다음에는 ‘가르쳐서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기’다. 그다음에는 ‘완성한 자와 사랑하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 신약 성약역사다.
33. 때도 와야 되지만, 만들어져야 된다.
34. ‘가을’도 와야 하고, ‘열매’도 커서 익어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때가 되어 ‘성약역사’도 와야 하고, 시대 말씀으로 ‘신부’들이 커서 완성돼야 한다.
35.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가 가장 깊고 크다. 사랑하는 자와의 대화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비밀이고, 제일 깊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이성 사랑’을 초월한 ‘뇌 과일 사랑’이다. ‘뇌’는 <사랑의 본체>다. ‘뇌 과일 사랑’을 해야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따라 사랑한다. 고로 ‘뇌 과일 사랑’이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37. <사랑>도 ‘학문’이다. ‘하늘의 사랑’도 배워야 된다.
38. ‘성자와의 사랑’은 어떤 상징적인 사랑이 아니다.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정말로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인간 남녀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39. ‘성자는 ‘남성’이신데, 인간 중에서 ‘남자들’은 어떻게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성자와 같이 살지?’ 하지만, 세상 육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도 다 못 시킨다.
40. ‘뇌’는 생각하는 대로 작동한다. 보석도 환경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사랑하는 남자로 보이고 사랑하는 여자

로 보여 사랑하게 된다. 영계에 가면, 100% 성자의 신부가 된 자는 <성자>를 ‘사랑의 주체’로 보게 된다.

41. 선생도 10대 때 영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의 주체’로 보고, 아예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 어떤 사랑을 드려도 부족했다. 그때 홀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내 자신을 예수님께 시집 간 신부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리고 신부로서 모든 살림살이를 했다. 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성자는 영이니, 육의 모든 일은 육인 내가 해야 했다. 전도하는 것부터 말씀을 전하는 일까지 내가 모두 해야 했다. 성자는 내게 말씀을 주고 가르쳐 주는 일을 하셨다. 나는 말씀을 주는 일은 못 하니,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

42. 천국에 간 후에 성자를 모시고 살려고만 하지 말아라. ‘연애’ 없이는 ‘결혼’도 없다.

43. 이 세상에서 성자의 신부가 되어 성자를 모시고 산 자들의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서도 성자의 신부로서 성자를 모시고 같이 산다. 이것이 ‘연애’ 후 ‘결혼’과 같다.

44. 이 세상에서 성자를 사랑하며 그 분체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 <육신 휴거>다. 이 기간은 ‘성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며 사는 기간’이다.

45. 결혼하면, 배우자가 생기니 홀몸이 아니라서 바쁘다. 이와 같이 성자와 ‘사랑 일체’되면 바쁘다. 그 육이 되어 드려야 한다.

46. <신약역사>는 ‘주를 기다리는 때’다. 고로 별로 안 바쁘다. 사명과 할 일이 있어도 ‘주를 만나기 전에 하는 일들’ 뿐이다.

47. <성약역사>는 ‘주를 맞은 때’다. 고로 할 일이 많고 바쁘다. 그 사명과 할 일은 모두 ‘주를 만나서 하는 일들’이다.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48. 우주 만물이 매우 웅장하니, 사람들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아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웅장한 존재자가 만들었다.

49. 곡식이 무르익은 넓은 황금벌판을 보여 주며 세 명의 농부를 가리키며 “저 세 분이 이같이 만들었다.” 하니, 사람들은 “어떻게 세 명이 이렇게 엄청나게 할 수 있느냐?” 하며 안 믿었다. 끝내 안 믿기에 그다음에는 세 명의 농부가 한 달 동안 벌판에 씨 뿌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 저렇게 씨를 뿌리면서 시작했구나.” 했다. 그다음에는 세 명의 농부가 계속 거름을 하고 곡식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었다. 곡식이 자라나 푸른 벌판이 되고, 이어서 추수 때가 되어 황금벌판이 되니, 사람들은 그제야 “확실히 믿겠다!” 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면, 우주 만물을 조금씩 만들어 우주의 법칙으로 작동하여 크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 현재 우주 만물은 이미 엄청나게 큰 상태이기에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못 믿는다.

50.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산과 나무를 가리키며 “내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키웠고, 집도 지었다.” 했다. 자녀들 중의 차남과 막내는 그 말을 안 믿었다. 그러나 장남은 믿었다. 어릴 때 아빠가 나무 심는 모습을 봤고,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집 짓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차남과 막내에게 그동안 아버지가 행한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 주니, 그제야 “저렇게 지었구나. 젓가락 같은 나무를 심었네. 지난 30년 동안 나무가 컸구나. 나는 처음부터 큰 나무를 심은 줄 알았네.” 했다.

5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는 씨를 뿌리셨다. 그리고 자연을 운동시켜 계속 커지게 하셨다. 고로 오늘날 우주와 지구의 모습이 된 것이다. 다 큰 모습을 보니, 삼위일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 비디오를 보듯이 환상으로 그 사실을 봐야 안다. 우주는 약 137억 년, 지구는 약 45억 년 동안 성장해서 오늘날같이 되었다.

52. 월명동도 선생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 믿는다. 비디오를 보여 주면서 그동안 행한 모습을 보여 줘야 “저렇게 쌓았네.” 하고 믿는다.
53.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인간이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하니 타락하고 썩은 문화가 되었고, 사탄이 주관하는 문화가 되었다. <세상 문화>는 배울 것이 없다. 거의 다 이성(異性)으로 흘러갔다. 노래, 춤, 연극, 드라마 등 모든 문화 예술이 타락 문화, 썩는 문화, 사탄 문화다. 고로 접하면 썩는다.
54. <세상 문화>는 문화 자체가 사탄이다. 하나님 주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55.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고로 하나님과 일체 되어 해야 된다. 그래야 <생명권 빛의 문화>다.
56.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상에 의한 문화를 해야 된다. 세상 노래를 들어 봐라. 모두 흑암의 세계에서 슬프고 애타게 내는 소리다.
57. ‘세상 문화’나 ‘세상 것’이나 ‘이성’이나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어쨌든지 자기는 아무 걱정 없다.
58.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자기와 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기쁨’도 따르고 ‘걱정’도 따른다.
59. 자기가 깨달아야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60. 자기가 답을 썼을 때, 그것이 자기 실력이다.
61. 항상 ‘주는 자’와 ‘받는 자’ 상대성 세계다.
62. ‘주는 자’는 <주체>다. ‘받는 자’는 <대상>이다.
63. ‘주는 자’가 아무리 잘 줘도 ‘받는 자’가 수준이 낮고, 믿지 않고, 그릇이 안 됐으면 못 받는다. 고로 ‘받는 자’가 문제다.
64. ‘받는 자’는 늘 예비해야 된다.
65. 자기에게 실력이 있으면, 주는 것을 받아 간다. 자기에게 실력이 없으면, 줘도 못 받는다.
66. 자기는 받는 자이니, 주는 자에게 구해야 된다. 주는 자는 그 간구를 듣고, 합당하면 준다.
67. 주는 자도 ‘제때’ 주고, ‘합당한 것’을 줘야 된다.
68.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면, 좋아하며 받는다.
69.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진주가 아무리 좋아도 안 받는다.
70. 주는 자도 상대를 연구하면서 줘야 된다.
71. 사람에게는 각자 ‘차원’이 있다. 차원대로 줘야 받아도 반가워하고 기뻐하며 받는다.
72. 주는 자에게 자기 사정을 깊이 말하며 달라고 해야 된다.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더 원할 때, 더 준다. 가만히 있으면 기본만 준다.

73. 사랑도 받는 자가 말을 안 했는데 주는 자가 더 해 주면, 마치 그릇 크기보다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넘쳐흐르듯 넘쳐서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한다.
74. 자기에게 부족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자에게 간절히 구해야 된다.
75. <시대 말씀>은 ‘성자’이며 ‘본체’다. 시대 말씀을 듣는 자가 더 구하는 것에 따라 말씀의 방향이 좌우되기도 한다.
76. 구하는 자는 만족하게 받는다. 고로 구해라.
77. 그러나 받을 자는 주는 자에게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
78. 받은 자는 합당한 것을 구했기에 받았다.
79. 기도해서 지혜로 분별하고 구하기다.
80. 성약 섭리역사의 사명자는 ‘성자를 먼저 사랑하는 사랑’을 했다.
81. 따르는 사람들은 그 조건 위에 성자가 먼저 사랑해 줌으로 성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82. ‘먼저 알아주는 자’, ‘먼저 눈치 채는 자’가 사명자다.
83. 성자는 ‘먼저 알아주는 자’, ‘먼저 눈치 채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84.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만물’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인간의 형상과 모양은 완벽한데, ‘마음·정신·생각’과 ‘영’은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다. 이것은 ‘인간이 할 일’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야 된다.
85.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영’을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86. 어린아이를 보아라. 모든 지체가 완전하게 갖춰졌어도 ‘마음·정신·생각’이 성장해야 된다.
87. 인간 모두가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영’을 만들어야 된다.
88. 자기 성격, 자기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으로 자기가 사망으로 가기도 하고 생명으로 가기도 한다.
89.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하면, 결국 사탄이 치면 넘어가게 된다.
90. 자기 성질, 성격, 혈기를 싹 버려야 ‘마음이 온전한 자’다.
91. 지옥에 가면, 지옥사자들이 왜 지옥에 왔는지 가르쳐 준다. 지옥사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법을 범한 자들의 영을 지옥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법을 범했는지 잘 안다.
92. 육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가는 영도 있고, 육은 지상에서 살고 있는데 지옥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도 있다.
93. ‘성자의 육’을 부인하는 자는 ‘성자’를 부인하는 자다.

94. 영이 가야 할 나라는 <사랑의 천국>이다. 지상에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랑의 축복’을 받고 사는 자들의 영만 <사랑의 천국>에 간다.
95. <천국 황금성>은 ‘사랑의 근본 세계’다. 고로 사랑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성약역사>로 와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성령’을 받아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된 영만 <천국 황금성>에 간다.
96. 가정에서도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된다.
97. 똑같은 설교를 해도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다. 고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라.
98. <사랑>은 ‘주체’가 원한다고 해서 사랑해 버리면, 강제성이 들어가 순리의 사랑이 될 수 없다. ‘대상’이 깨닫고 성장하여 ‘주체’에게 가야 된다. 이것은 순리의 사랑이다.
9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강제 사랑’을 안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마음·정신·생각’과 영이 제대로 발달되고 성장된 후에, ‘대상’인 인간이 ‘주체’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100. ‘돈, 명예, 권력’으로 사랑을 지배하면 안 된다.
101. ‘성자의 진정한 사랑과 진리’로 사랑을 다스려야 된다.
102. 교역자가 사람의 마음을 다 못 맞춘다. 모두 성자의 마음에 맞춰야 된다.
103. 인본주의자들은 성자의 마음에 맞추지 않는다. 그들이 변화되어 성자의 마음에 맞춰야 된다.
104. 자기가 확신을 가져야 자기가 먼저 뜨거워진다.
105. 예정해 놓은 것도 자기가 안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106. 하나님과 성자는 예정해 놓은 일을 하신다. 거기서 더 길을 넓히는 것과 자기가 할 일은 ‘자기 몫’이다.
107.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로서 ‘사랑’을 창조하셨다.
108.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사랑을 사용하면서 사니, ‘육’을 위해서만 사랑을 쓰고 끝나고, ‘물질과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만 사랑을 쓰고 끝난다.
109.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나라 천국>에서 살라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육’을 위해서만 그 사랑을 다 쓰고 끝난다.
110. 하나님과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의 생명’을 얻는다.
111. ‘시대 진리’로부터 ‘사랑’이 전해진다. 하나님과 성자는 그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사랑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신다.
112. <시대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행하여, 하나님과 성자와 사랑을 이루게 된다.
113. 하나님은 시대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랑의 차원’을 높이셨다.
114.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단계>는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나타내신다.

115.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모르고 외면하니,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타락되는 것이다.
116. <성약급 사랑의 진리>를 선포했어도 무지하여 배척하니,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세상 타락의 길로 가서 자기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이다. 결국 자기 행위로 심판받게 된다.
117. '무지'로 심판을 받는다.
118. '무지'로 자기가 모르고 행하여 자기가 자기를 심판받게 하는 것이다.
119. <시대 복음>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120. 세상을 다 사랑해도 '사랑의 곤고'가 온다.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영원한 사랑을 해야 '사랑의 곤고'가 없다.
121.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린다. 성자와 주가 다스려야 된다. 고로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성자와 주와 교통해라. 그러면 네 마음을 성자와 주가 다스린다.
122. <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휴거에 있어서 '성자 사랑'이 절대적이다. 사랑하려면 기도해라. <기도>는 '성자와 주와의 대화'다. 대화하니, 항상 사랑이 이루어진다.
123. 성자의 욕을 통해 성자의 마음을 알고, 성자와 일체 되는 기도를 해라.
124. 시대 사랑과 휴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함으로 홀연히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라.
125. 사랑은 온전해야 된다. 용광로에 넣으면 순금만 남듯이, 사랑도 온전해야 사랑이라 할 수 있다.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죄와 회개에 대한 중요한 잠언

1. 간구해라. 그래야 '구한 것'을 받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틀어 주신다. 그래야 '도울 자'를 보내신다.
2. '하나님과 성자를 위로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도 성자도 너를 더 위로해 주신다.
3. 회개하면, 성자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용서해 주신다. 고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또 가볍게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은 자는 '죄'를 가지고 성자와 주를 괴롭게 한 자다. 성자도 주도 죄를 용서할 때는 극심한 괴로움 속에 용서한다.
4. 죄를 지으면, 사탄의 몸으로 쓰여지면서 성자와 주를 괴롭게 한 것이다. 그 죄로 인해 '자기가 쌓은 공적'도 무너지고, '자기'도 약해진다.
5. 죄를 지으면, 사망에 거하게 된다.
6. 죄를 지으면, 일단 사탄의 주관을 받게 된다. 회개해도 그만큼 약해진다.
7. 깨끗한 옷도 입다 보면 점점 더러워지듯,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처음에는 조금씩 짓다가 어느 날 크게 짓게 된다.
8. 사람이 한 번에 죄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처음에는 미지근하게 죄를 짓다가, 그것이 죄를 짓는 여건이 되어 점점 더 뜨겁게 죄를 짓게 된다.

9. 작은 죄도 열 번 지으면, 그 무게가 큰 죄와 같다.
10. 매순간 '죄'를 의식하고 '회개'를 의식해라.
11. 몸의 때도 조금씩 점점 끼다가, 며칠 만에 때가 온몸의 땀구멍을 메워 버린다.
12. '자기 육'은 죽으면 표가 나지만, '자기 영'은 죽어도 표가 안 난다. 깊이 기도해야 된다.
13. <말씀>으로 늘 '자기 영'을 살려야 된다.
14. 죄를 짓고 회개하면 사망권을 벗어난다. 그래도 죄를 지은 근성이 자기 마음에 뿌리박혀 있다. 그 근성을 온전히 깨내 버려야 완전하다. 그 근성으로 또 돌감나무 순같이 본성이 올라오게 된다.
15. '근성을 고치는 것'이 온전한 회개다.
16. <회개>는 입으로 낱알이 고하고, 마음 속 근성을 없애고, 마치 독약을 아예 안 마시듯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17. 회개한 만큼 용서다.
18. '제일 무거운 죄'가 있으니, "이것은 죄가 아니다." 하며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고 행하는 죄다.
19. 사탄은 죄인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인정하게 한다. 무지한 인간을 들어 쓰며,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믿게 만든다.
20. 그 날 아예 안 놀러 가듯, 아예 '세상 생각, 이성 생각'을 안 하는 자만 죄를 안 짓게 된다. 아예 뇌에서 진행시키지 않아야 죄에서 멀어진다.
21.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과 수작에 말려서 죄를 쉽게 짓는다.
22. 썩은 이를 빼듯이, 썩은 사상과 사고를 빼내고 부정하며 자기 근성을 고치는 것이 <회개>다.
23. 일부는 깨끗하게 회개하고, 일부는 보통으로 회개하면, 회개가 깨끗이 되지 않는다.
24. '임시'로 회개하거나 '일부'만 회개하면, 금방 또 죄가 발생한다. '아예 깨끗하게'다.
25. <완전한 회개>는 '자기'가 해야지, '남'이 못 해 준다.
26. <죄>는 마치 '금속에 섞인 잡철'과 같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잡철을 뽑아내듯, 뜨거운 진리와 성령으로 죄를 뽑아내야 된다. 이것이 <회개>다.
27. 죄를 짓고 나서 지옥을 면하는 길은 '회개'다. 그리함으로 성자와 주께 '용서받는 것'이다.
28. 하나님과 성자의 최고의 사랑은 '용서'다.
29. 진정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성자와 주가 용서하면 죄가 없어진다.
30. 육신 쓴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육신은 무지하기 때문이다. 또 육신 자체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에 때가 생기듯이, 죄가 생긴다. 고로 진정 '회개'다.

31.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죄를 경계해라. 둘째,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라.
32. ‘회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경계하고 안 짓는 것’이다.
33.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라. 그러면 가벼운 고통을 받고 죄를 해결한다.
34. 적은 짓값을 치르고 바로 끝내려면, 죄 짓고 바로 고백하고 뉘우쳐 회개하기다.
35.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라. 이것이 회개다. 혼자 의를 세우고 다짐하고 회개하면 안 된다. 성자의 육에게 숨기지 말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다.
36. 삼위가 육으로 쓰는 사명자는 ‘죄 고백 회개 접수처’다. 성자는 그 육을 통해 회개를 받으신다. 세상에서도 어떤 것을 받을 때 먼저 접수처에서 받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이와 같이 질서가 있다.
37. 먼저 ‘죄 접수처’에 접수하고, 그를 통해 성자에게 회개를 보내야 한다.
38. 자기 속옷이든 겉옷이든 더러우면 하나씩 다 벗어 세탁하고 자기의 더러워진 몸까지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죄를 회개할 때는 완전히 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다.
39. 계시록을 보면, 맨 마지막에 사탄을 가둔다고 했다. ‘어떤 조건’으로 사탄을 가두는지 알아라. ‘하나님과 성자를 100% 사랑하는 신부 조건’ 때문이다.

<2014년 3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안 속는다. 성자와 일체 되어 살면 너도 안 속는다.
2. 성자는 모든 환난 핍박을 다 이기신다. 성자와 일체 되어 살면 너도 이긴다.
3.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살려고, 술을 만들어서 먹고 ‘술 정신’으로 살다가 죽는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 속한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자들이냐. ‘하늘 정신, 성자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4.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취하고, 즐기며 살다가 ‘육’은 죽어서 끝나고, 그 ‘영혼’은 지하 세계, 흑암 세계로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살게 된다.
5.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고, 그가 보낸 메시아의 말을 듣고 의롭게 산 자들은 ‘육신 일생’ 보람 있게 살고, 그 ‘영혼’도 하늘 천국에 가서 영원히 기뻐하며 사랑받으며 살게 된다.
6. <천국>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다. 하나의 꿈같은 환상의 세계가 아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듯, ‘확실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다.
7. 하나님은 1차로 <영원한 세계>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인간의 ‘육’을 만들고, 그 육이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살게 하기 위해 ‘영’을 만드셨다. 그래서 2차로 <이 지구 세상>도 만드셨다.
8. 육신은 이 세상에서 겨우 100년 살면 꼬부라지면서 늙어 죽는다. 그러나 육신이 살았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구원자를 만나 그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은 영은 그 차원대로 그에 해당되는 선의 세계에 가서 살게 된다. <천국>으로 가는 영도 있고, <낙원>으로 가는 영도 있고, <선영계>로 가는 영도 있다.
9. ‘알곡 없는 곡식’은 땀 흘려 가꿔도 헛수고다. 이와 같이 ‘영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수고해도 헛수고다.

10. ‘고욤나무’는 아무리 퇴비하고 정성 들이며 가꿔도 ‘참감’을 열지 못한다. 성자가 보낸 자는 ‘참감나무’다. 인생들은 ‘고욤나무’다. 성자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라. 그래야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 이루어져 ‘영의 열매’를 열게 된다.
11. 육계에서는 눈으로 보는데도 표현을 못 한다.
12. 영계에서는 3~4가지를 보여 주는데, 보는 대로 제대로 표현이 나온다.
13. 영계에서는 안 답답하다.
14. 육계에서는 성자가 깨우쳐 주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15. 영계서는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 말하지 않고, ‘비유의 실체’를 보여 깨닫게 하신다. 실제로 ‘꽃’을 보여 주고, ‘강’을 보여 주고, ‘사람의 영’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6. 영계서는 ‘같은 심정,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은 ‘같은 위치’에 모여 심정으로 대화하며 행한다.
17. 사람도 배구를 좋아하면 배구 하는 데로 가고,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하는 데로 간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같은 급에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행한다.
18. 기도할 때도 ‘같은 심정 급’에서 서로 통하면, 그 혼이나 영들이 같은 위치에 모이게 된다.
19.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자는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듯이, 영들도 영의 세계에서 마음과 같은 ‘영’이 음식을 먹으니 영계에는 화장실이 필요 없다.
20. ‘꿈’에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듯이, ‘천국’에서 영들이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
21. <영의 세계>에서는 마음먹고 생각한 것이 실체가 되는 ‘생각 실상 세계’다.
22. <영의 세계>는 ‘육신 마음 세계’와 같다.
23. 천국에서는 영이 깊은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깊은 물에 빠졌어도 안 죽는 격이다.
24. 사탄은 <새 역사>를 방해하지만, 혼인 잔치에 오는 자들 앞에서 개가 짖는 격이다.
25. 개가 짖는다고 혼인 잔치 못 하겠느냐. 개가 짚어서 혼인 잔치를 못 할 정도면, 주인이 개를 모두 때려잡는다.
26.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를 펴 나가시는데 ‘사탄’ 때문에 역사를 못 펴겠느냐. 사탄은 사람 앞에 개 정도다. 아들 혼인 잔치를 할 때 개가 짚어서 손님들을 놀라게 하니, 주인은 개를 묶어서 잔치가 끝날 때까지 개집에 넣고 뒷동산에 갇다 놓는다.
27. 섭리 역사를 보고 사탄은 개 짖듯 방해하지만, 이미 성자의 육이 통과한 후에 개가 짖는 격이다.
28. 섭리 역사를 20년 동안 펴 때까지도 세상은 몰랐다. 성약 섭리 역사는 이미 무덤기간을 지나 ‘독립의 때’를 맞고 통과했다. 그제야 세상 개들이 잔칫집 냄새를 맡고 짚어댔다. 냄새는 나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29. (성자) 본인이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니 본인이 자살도 하고, 자포자기도 하고, 쏘서 박히기도 하고, 나태하여 뒹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각종 실수도 하고, 그로 인해 고통도 받는 것이다. 나 성자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주고, 너는 옆에서 타고 가라. 그래야 인생 편안하게 살고, 나의 뜻대로 살아서 영원토록

잘되고 형통한다.

30. '지금' 잘해야 된다. 옛날에 잘했어도 지금 못 하면 지금 얻을 것을 못 얻게 된다.

<2014년 3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전초>는 '목적을 두고 올라갈 수 있게 계단을 만들어 주는 단계'다.
2. <전초>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두고 차원 높게 올라가게 해 주는 디딤돌'이다.
3. <전초>는 '문을 열게 위치를 가르쳐 주는 단계'다.
4. <전초>는 '막힌 귀를 열어 주는 일'이다.
5. <전초>는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보게 해 주는 것'이다.
6. <전초>는 '잠을 깨우는 격'과 같다. .
7. <전초>는 '처음 보는 사람과 인사하는 것'과 같고, <본론>은 '하고자 하는 말을 대화하는 것'과 같다.
8. <전초>는 '말할 것을 두고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것'이다.
9. <전초>는 '마음 문을 조금 열어 주어 그리로 밖을 내다보게 하여 앞 정원에 누가 왔는지 보게 해 주는 것'이다.
10. 전초를 안 하면, 귀와 마음이 '문'을 못 찾고 '집 근처'만 뱅뱅 돌다가 만다.
11. 전초를 안 하고 본론부터 말하는 자는 정말 말을 지혜 없이 하는 자다.
12. <전초>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첫인사를 하는 것같이 중하고, 화장하기 전에 기본 화장을 하는 것같이 중하고, 관광지에서 안내하는 것같이 중하고, 목적지에 가기 전의 표시판같이 중하다.
13. 전초를 안 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여행 갈 때 여권을 빠뜨리고 가는 자와 같다.
14. 전초를 안 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편지를 쓸 때 자기소개를 안 하는 자와 같아서 아무리 읽어도 그 말은 알아들을 수 없다.
15. <전초>는 마치 수정 동굴 '입구'를 보여 주며 말해 주는 격이다. <근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정 동굴의 5미터, 10미터, 20미터, 30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16. 전초 없이 말하는 자는 마치 관광객은 산 너머에 있는데 자기 혼자 수정 동굴에 와서 수정 동굴에 대해 설명하는 격이다.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온전하게 거듭나야 '휴거의 영'이 된다.
2. 성자가 오셔서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가실 때는 마치 공사가 다 끝나고 완공하여 준공식을 하는 격이다. 그 전에 미리 휴거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3. 저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분체와 사랑 일체 되어, 자기 행위에 따라 차원 높여 자기 영을 변화시키며 완성시켜 휴거를 이뤄야 된다.
4. 계속 차원을 높이고, 높은 차원에 올랐으면 그 차원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다음 차원으로 가기 위해 행해야 된다.
5. 자기가 몸부림쳐 ‘휴거의 차원’을 높였다 하자. 마치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거기서 더 안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게 유지하며 끝까지 사는 것이 중하듯, ‘휴거의 차원’을 높였으면 거기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다음 차원을 가기 위해 행해야 된다.
6. 성장하려면, 꾸준히 <단계>를 높여야 된다. ‘육’이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과 행실의 변화 단계>를 거치고, ‘영’이 그 의의 영향을 받아 <영이 점점 완성되는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변화되어 완성된 영이 성자를 맞고 휴거된다. 이때 성자를 맞고 휴거된 영들은 ‘하늘의 신적 단계의 영’이 된다.
7. 성자와 분체와 교통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이다.
8. 섭리사를 따르는 자들은 분체와 똑같은 환난과 핍박은 안 받지만, 어린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겪고 넘어야 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모두 겪고 넘어와야 된다.
9. <육>은 ‘땅을 벗어났을 때’ 난다고 표현하고, <영>은 ‘걸어 다니다가 났을 때’ 난다고 표현한다. <영>은 시공을 초월하여 다닌다. 육이 볼 때 영이 날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영은 갈 곳을 다니는 것이다.
10. 마치 ‘사람의 말[言]’이 공중에 다니듯이, <영>은 ‘공간’이 길이며 땅이다.
11. 우주 공간에도 영들이 다니는 길이 다 있다. 천국에도 그러하다.
12. 형제를 사랑하려 해도 상대가 그 사랑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속이니 문제다. 고로 ‘절대 진리의 터전 위’에서 해라. 분별해라.
13. 성자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모순이다. 고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분별하지 말고, ‘행위’를 보고 분별해라. <분별>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해라.
14. 오직 하나님 사랑, 성자 사랑, 성령님 사랑, 분체 사랑을 기본으로 진리의 터전 위에서 공의롭게 형제 사랑이다.
15. <승리>는 ‘목적 달성’이다.
16. <승리>는 ‘저마다 꿈을 이루는 것’이다.
17. ‘성자를 자기 것으로 차지한 자’는 <영원한 승리자>다.
18. 승리자와 일체 되면 다 승리한다.
19. 성자 사랑이 내 안에, 내 사랑이 성자 안에 상호 존재해야 최정상에서 사랑을 성취한 자다.
20.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약육강식’의 비원리 세계로 더욱 기울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만물을 다스리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생명을 위해 돕고 상호 존재하게 된다.
21. 인간의 타락으로 전체가 균형을 잃었기에 만물의 질서가 파괴되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악인이 생긴 후부터다.

22. 인간의 타락으로 ‘마음 파괴, 육 파괴, 삶 파괴’를 가져왔다.
23. 먼저 뇌가 온전해져 ‘마음’을 복구해야 ‘육의 삶’도 전능자의 뜻대로 정상이 된다.
24. ‘마음 복구, 육의 복구, 삶의 복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됨으로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이다.
25.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을 버리기도 하고 찾기도 한다. <자기 책임>이 중하다.
26. <행복>은 영원하지 않으면, 행복이라 할 수 없다.
27. ‘참사랑’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참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로부터 온다. 그 사랑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28. ‘사랑 없는 곳’이 마음 지옥, 환경 지옥, 삶의 지옥이다.
29. 신의 사랑의 주관권 안에 거해라!
30. ‘사랑의 행복’이다. <육적 사랑>은 ‘땅에 속한 잠깐의 행복’이며, <영적 사랑>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행복’이다.
31. 사랑해 보지 않은 자에게는 평생 사랑 이야기를 해도 모른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사랑해 봐야 사랑을 안다. 성자와의 영원한 사랑도 그러하다.
32. 사탄은 우리에게서 허물을 찾는다. 허물을 찾아 힐문하고 괴롭힌다. 고로 빨리 회개하여 없애라.
33. ‘자기 성격과 자기 생각과 근성’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성자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흥한다.

<2014년 3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섬겨 주고 공경하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를 더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2. <종>은 섬기고, <아들딸>은 공경하고, <신부>는 사랑한다.
3. 자기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성자를 대하는 대로 ‘종’, 혹은 ‘자녀’, 혹은 ‘신부’로 결정된다.
4. 하나님은 <종 시대>, <자녀 시대>, <신부 시대>를 주시고, 그에 따른 사명자를 보내어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시대에 따라서 그 차원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사랑하게 하신다.
5.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이요, ‘아버지와 자녀’요, ‘신랑과 신부’이지만, 우리끼리 볼 때는 우리의 관계가 ‘형제’다. ‘종의 형제들’이고, ‘혈통의 형제들’이고, ‘신부의 형제들’이다.
6. 하나님은 <종>을 사랑하여 차원 높여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를 사랑하여 차원 높여 <신부>로 삼으셨다.
7. <신앙적 자녀>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신부’로 삼으셨으니, 역시 ‘사랑’이 제일 크다.
8. 종에게는 ‘종 입장의 사랑’이 온다. 자녀에게는 ‘자녀 입장의 사랑’이 온다. 신부에게는 ‘신부 입장의 사랑’이 온다. 구약 ; 신약 ; 성약의 사랑이 이같이 구분된다. 고로 성약역사는 ‘가장 최고 위치의 사랑의 역사’다. 하나님은 종처럼 섬기고, 자녀처럼 공경하는 것보다 신부가 되어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9. 어떤 남자나 여자가 종 입장이 되어 자기를 섬겨 주기만 하면, 사랑의 만족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어떤 남자나 여자가 자녀 입장이 되어 자기를 공경해 주기만 하면, 역시 사랑의 만족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이 타락한 역사’를 다시 근본으로 복직시키기 위해 구원역사를 펴 오시다가, 마지막 성약 섭리역사 때에 <사랑의 역사>로 근본으로 복직시키셨다. <구약역사>는 ‘섬기는 신앙’을 해 왔고, <신약역사>는 ‘공경하는 신앙’을 해 왔다. 이 시대에 보낸 자는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신앙’을 하여 <성약의 문>을 열어 주었고, 그로 인해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1000년 혼인 잔치 성약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의 역사를 거쳐서 ‘신부’로 완전히 복직된 역사가 <성약 섭리역사>다. 이제 시대 구원자를 맞고 ‘신부’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온전히 사랑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에덴동산 역사’를 이루게 된다. 사랑의 역사로 복직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다. 제1아담 이후, 제2아담 예수님을 거쳐 제3아담 시대 보낸 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근본>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성자가 다시 오시어 땅에서 세운 제3아담, 곧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섭리역사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사랑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깨진 후, <구약 4000년> 동안 선지자들과 중심인물을 보내어 역사를 펴 오셨다. 그 후 성자가 이 땅에 오시고 ‘제2아담인 예수님’을 성자의 육으로 보내어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펴 오셨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자가 다시 오시어 제3아담, 곧 시대 보낸 자를 통해 1000년 동안 <성약 사랑의 역사>를 펴 나가시며,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의 뜻’을 정녕코 이루신다.

10.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역사적으로 구약, 신약 두 번의 역사가 지나고 성약은 세 번째 하는 역사다. 첫 번째로 <구약 4000년> 동안 정화시키며 ‘종급’으로 구원역사를 폈고, 두 번째로 성자가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신약 2000년> 동안 정화시키며 ‘자녀급’으로 구원역사를 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자가 신랑으로 다시 오셔서 땅에 성자의 사랑의 대상을 세워 마지막 사랑의 구원역사를 <성약 1000년> 동안 ‘신부급’으로 펴 나간다.

11. 1000년 성약역사는 과거 구약역사와 신약역사와는 다른 역사다. 신구약 6000년 기간은 <사랑의 역사>를 복직하기 위한 ‘형벌 기간, 회개 기간’이기도 하다. 곧 ‘성장 기간’이다. 성약 1000년 기간은 <사랑의 역사>를 복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이다. 곧 ‘완성 기간’이다.

12. <구약>은 0대 기간과 같고, <신약>은 10대 기간과 같고, <성약> 20대 기간과 같다. 고로 <성약역사>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 결혼하고 사는 기간과 같다.

13. <성약역사>는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사는 기간이다. 고로 과거에 형벌을 받고 회개하며 성장하고 준비하던 <구약, 신약>과는 다르다. <성약역사>는 다 길러 놓고, 회개시켜 놓고, 신부로 준비시켜 놓고,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그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된다.

14. 성자가 땅에 재림하셨을 때부터 성자가 육으로 택한 자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랑하는 <사랑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는 본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역사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므로 그동안 형벌 받고 회개하는 기간을 거치면서, 때가 되어 <사랑의 뜻>을 복직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육신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사랑의 혼인 잔치>를 하고, 이어서 육신의 행실을 통해 신부로 변화된 ‘신령한 영혼들’이 휴거되어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한다. 지금은 <영 휴거>가 시작되어 진행 중인 때다.

15. 계절이 와서 씨를 뿌리는 자만 ‘씨 뿌리는 때’가 왔는지 알고, 그 곡식들을 가꾸고 추수하여 먹는 자만 ‘추수 때’가 왔는지 안다. 봄에 산에 가 본 자나 꽃이 핀 줄 알고, 가을에 산에 가 본 자나 단풍이 든 줄 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와서 시작된 <새 역사>에 ‘참여한 자들’만 하나님의 지상의 마지막 역사, <성약역사>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역사다. 성약역사는 이미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

16. 잔칫집에 가서 잔칫상을 받고 놓고, 먹고, 즐기는 자만 혼인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이와 같이 <새 역사 성약역사>에 부름 받고 와서 따라가며 먹고 마시는 자들만 이 땅에 <하늘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안다.

17. ‘해당되는 자의 세계’다. ‘참여하는 자의 역사’다.

18. 불교에 어떤 역사적 대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알겠느냐. 알 필요도 없고 상관도 없으니, 10년 전에 대행사를 했어도 ‘관심’이 없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모르고 산다. 이와 같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새 역사>에 관심 없이 이와 상관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지 이미 오래됐어도 모른다.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일을 진행하고 있어도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알고 같이 먹고 즐긴다. 이 시대 성약역사로 왔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만 휴거되어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

19. <성약 때>가 되면 성자는 ‘신약 자녀급에 있는 자들’을 ‘신부’로 취하여, 성약의 분체를 통해 ‘신부로 변화된 육’을 <땅>에서 휴거시키시고, ‘신부로 변화된 영혼’은 <천국>으로 휴거시키신다. 그리함으로 <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

20. <신약 때>는 ‘구약 종급에 있는 자들’을 ‘자녀’로 취하시고, 신약의 분체 예수님을 통해 <자녀권 구원역사>를 이루셨다.

21. <구약 때>는 ‘타락하여 타인같이 된 자들’을 ‘종’으로 취하시고, <종급 구원역사>를 이루셨다.

22. <성약역사>는 창조 이래, 종교 역사 이래 ‘최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

23. 하나님의 역사를 ‘나무’로 비유하면, 구약 한 나무, 신약 한 나무, 성약 한 나무다. <구약>이라는 ‘종 나무’를 베고, 거기에 <신약>이라는 ‘자녀 나무’를 접붙이고 키워서 결국 ‘신약의 큰 나무’가 되었다. ‘자녀 나무’와 접붙이지 못한 가지에서는 ‘종 열매’가 열렸고, ‘자녀 나무’와 접붙인 가지에서는 ‘자녀 열매’가 열렸다. 그리고 <신약>이라는 ‘자녀 나무’를 베고, 거기에 <성약>이라는 ‘신부 나무’를 접붙이고 키워서 ‘성약의 신부 나무’가 크고 있다. ‘신부 나무’와 접붙이지 못한 가지에서는 ‘자녀 열매’가 열리고, ‘신부 나무’와 접붙인 가지에서는 ‘신부 열매’가 열린다.

<2014년 3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미리 예비한 자’만이 사탄에게 안 당한다.

2.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어 그로 인해 ‘신부로 변화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와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에 사탄은 ‘사랑의 소외감’을 갖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려 하셨을 때부터 반대했다.

3. 사탄은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4. 사탄은 우리가 성자와 주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5.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 깨졌던 <사랑의 뜻>을 복직하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다.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됨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됨으로 <사랑의 뜻>을 이룬다.

6. 지금은 <영 휴거 기간>이다. 이때 사탄은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도록 심하게 방해한다. 그러나 사탄이 올 때는 미리 알려 주고 오지 않는다. 고로 미리 기도하면서 예비하여라.

7.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시대 구원자’로 인해 구원받는다. 여기에 ‘자기 책임’을 하는 것이다.

8.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9. <노아 때>는 ‘노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모세 때>는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신약 예수님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

10. <이 시대 성약 때>는 ‘성자가 욕으로 쓰는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가 시대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래야 사탄도 못 건드린다. 그가 ‘성자의 욕’이기 때문이다.
11. 집중해라. <기도할 때>는 성자와의 대화, 주와의 대화에 집중해라. <말씀 들을 때>는 듣는 것에 집중하고, <행할 때>는 행하는 것에 집중해라. <휴거 때>는 휴거에 집중해라. 때가 오면, 그때에 해당되는 일에 집중해야 그것으로 인해 원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12.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해야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성자와 통한다.
13. 보낸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집중해서 해 주어라.
14. <성자의 생명의 말씀>을 형제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돌려서 사용하지 말아라.
15. ‘사랑 떠난 행위’는 안 받는다.
16. <행위의 출발점>은 항상 ‘선’이어야 한다.
17. ‘온전한 사랑’으로 출발해라.
18. <사랑>은 항상 ‘제일’이다. ‘우선권’이 돼야 한다.
19. <목적>도 ‘사랑’이어야 변질되지 않는다.
20. ‘성자와의 사랑을 이룬 자’를 <성자의 욕>으로 보낸다.
21. 선생 앞에도 ‘사랑’을 인정받아야 <선생의 욕>으로 보낸다.
22. ‘사랑’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허무하다. 무(無)로 끝난다.
23. <사랑>이 알곡이다. 보화다. 생명이다.
24. 생명 사랑, 선생이 보낸 자 사랑, 분체 선생 사랑, 성삼위 사랑이다.
25. <땅>으로는 ‘보낸 자 사랑’, <하늘>로는 ‘삼위 사랑’이다.
26. ‘용서’다. ‘돕는 것’이다. ‘참사랑’이다.
27. 형제들을 내가 사랑하는 주로 보고, 주의 몸이 되어 형제를 대해 주어라. 그것이 주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이다.
28. 영계에서 보면, 자기 욕신의 행위에 따라 영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행한다. 자기 욕신이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 그 영도 소경처럼 위험한 길, 절벽 길, 함정으로 가둬 가고 있다. 이를 본 구원자와 온전한 영들이 질겁하면서 잡아 준다. 그러나 그 영들은 그 욕신과 같이 구원자의 말을 안 듣고 간다.
29. 사망길로 가는 영에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면, 듣는 영도 있다. 그러나 대개 이미 사탄에게 쥐여 있기에 사탄을 따라 사망길로 가 버린다.
30. ‘자기가 세상에서 사는 행위와 삶’이 <자기 욕이 가는 길>이 되고, <자기 영이 가는 길>이 된다.
31. 성자는 변질되지 않는 자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기르신다.

32. 자꾸 변질되는 자는 불안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33.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성’으로 변질되고 ‘세상적’으로 변질됐던 사람들은 ‘순금 인생’이 아니기에 온전하지 못하여 변질됐던 것이다.

34. 온전하면 안 변한다. 온전치 못한 자는 변하니 더욱 온전하여라.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35. 기성인들은 ‘성자’는 믿겠는데 ‘그가 보낸 자’는 못 믿겠다 한다. ‘성자’가 ‘보낸 자’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서 전달하시는데 ‘보낸 자’를 못 믿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지 못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성자를 믿지 못한 것이 되어 ‘구원’이 없다.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심부름꾼을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줬는데 안 받으면, 비행기는 못 탄다.

36. 하나님과 성자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주신 <시대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성자’가 ‘보낸 자의 욕’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37.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주신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만 성삼위를 믿은 것에 불과한 자가 되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

38. 존재만 믿는다고 해서 그 존재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행해야 뜻이 이루어진다.

39.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보고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한다.” 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다. 여자가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남자와 같이 행해야 ‘사랑’이 이루어진다. 성자를 한 남자로 볼 때, 성자를 믿는다 해도 성자의 말씀을 듣고 같이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사랑과 같다.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듯, 구원자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40. <믿음>과 <행위>로 모든 것이 성사된다. 구원도 그러하다.

41. <마음>으로 1단계 세계가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2단계 세계가 이루어진다. 세상만사 모든 일도 그러하고, 구원도 그러하다.

42.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는 못 믿겠다 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도 허사가 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냈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도 믿는 것이 되어 구원받았다.

43. 이 시대도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믿어야,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성자와 일체 된다.

44.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절대 진실로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도 믿고 행해야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행한 것’이 된다. 하나님과 성자가 그 보낸 자의 욕을 통해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성자는 믿겠는데,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못 믿으면 ‘구원’은 없다.

45. 대개 ‘보낸 자의 욕’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자는 믿어도 그 욕은 못 믿는 것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구했으나,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했다. 그러다 망했다.

46.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게 와라. 그래야 내가 산다.” 했다. 이 말을 들은 자가 “나는 당신은 못 믿겠고, 당신을 보내 준 사람만 믿겠다.” 하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 소원을 못 이룬다.

47. 항상 심부름꾼 말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보내신 사명자들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생각하고, 그의 말을 듣고 가야 된다.

48. 자신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시대 구원자도 아니다.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희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다. 고로 ‘보낸 자’의 말을 안 듣고 그를 안 따르면, 구원받지 못하고 끝난다. 구원역사 6000년 동안 그러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49. 하나님과 성자는 항상 ‘보낸 자’를 통해 역사를 펴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자를 직접 만나려고만 한다. 하나님과 성자는 ‘보낸 자’와 같이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50. 부모가 아이를 잃고 당황하여 온 동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애타는 심정으로 생명을 찾아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할 자들이 많다.

51. 부모를 잃은 아이가 부모를 찾아 울고 다니듯, 그러한 심정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 전도해라. 그러면 생명을 만나 전도하게 된다.

52. 부모는 자기 아이를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찾아보고, 동네 주변의 산도 다 찾아볼 것이다. 찾다가 자기 아기가 지옥에 가 있다면, 서슴지 않고 지옥까지 갈 것이다. 이런 심정으로 생명을 전도해야 된다.

53. 하늘 부모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을 받아라! 그래야 생명을 찾아온다.

54. 놀러 갔다가 순간 사랑하는 애인을 잃어버렸는데 마음이 잡히느냐. 찾을 때까지 마음이 안 잡힌다. 그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찾는 것이다.

55. 자기 잃어버린 애인을 찾아야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56. 애인을 잃어버리고 홀로 잠이 오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57. 잔디밭에서 놀다가 자기에게 소중한 보석 목걸이를 잃어버렸으면, 그 다음날 날이 새기 전에 찾아야 된다. 날이 새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 다니다가 누군가 보고서 가지고 간다. 이와 같이 생명도 찾아라.

58. 선생이 20대에 산에서 기도할 때, 한 장면을 보았다. 어떤 집의 한 어른이 농사를 지어 황금별판을 이루었는데, 가을에 곡식을 거둘 사람이 없어서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를 보고 선생이 “자녀들이 있지 않아요? 추수할 일군이 있지 않아요? 자녀들과 추수할 일군이 와서 도와주면 되지 않아요?” 했다. 이에 그 어른은 “자녀들은 이제 편히 살겠다고 도시로 떠났고, 추수할 일군도 없어.” 했다. 황금별판을 만들어 댔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내가 다 베서 타작까지 해 줄게요!” 하니, 그 어른은 좋아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혼자 하나?” 하기에 선생은 “내가 추수할 일군들을 모아서 할 거예요.” 했다. 이 말을 듣고, 그 집 어른은 매우 기뻐했다.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보니, <어른>은 ‘하나님과 성자’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이고, <추수할 곡식>은 ‘구원할 생명들’을 보여 주신 것이었다. 기도할 때 본 그 장면대로 선생이 하나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성자와 함께 35년 동안 <섭리역사>를 펴 오며, 추수할 생명들을 구원해 왔다.

59. 20대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영계의 한 장면이 보였다. 골짜기마다 양들이 있는데, 해가 서산에 많이 기울어져 양 떼를 몰고 올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양을 몰고 올 그 집의 자녀들이 모두 제 갈 길로 아예 가 버리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집 주인은 창문을 열고 애처롭게 양 떼를 쳐다보며 탄식하고 있었다. 이때 “내가 양 떼를 다 몰아다 줄 테니, 허락해 주세요!” 했다. 주인은 “이제 해가 저만큼이나 기울었는데, 몇 골짜기 가서 몇 마리나 몰고 올 수 있겠냐?” 했다. 그래서 선생은 “내가 구상한 것이 있으니, 빨리 허락만 해 주세요!” 했다.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양 떼를 몰러 갔다. 골짜기에 가서 보니, 예쁘고 살이 통통하게 찐 양들을 이리들이 잡아먹는 것이 보였다. 너무도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속히 양 떼를 몰아서 동네 어귀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다음 골짜기로 가서 또 양 떼를 몰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고, 계속 이같이 하여 양 떼들을 다 집에 데려다 놓았다. <양들의 주인>은 ‘하나님과 성자’였다. <양들>은 ‘생명들’이었다. <이리>는 ‘사탄과 악한 자들’이었다. 선생은 섭리역사 35년 동안 영계에서 봤던 대로 그 심정을 가지고, 성자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들을 전도하고, 급한 대로 그때그때 생명들을 관리하면서 살폈다.

<2014년 3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일을 하다 할 일이 남아 있어도 내가 일을 끝내야지, 일이 나를 끝내게 하면 끝도 없다.
2. 일을 다 끝내고 일을 끝내려다가는 세월이 다 간다. 고로 할 만큼 하고, 칼로 무 자르듯 자르고 제시간에 끝내야 된다.
3. 내가 일을 끝내야지, 일이 나를 끝내게 하지 말아라.
4. 일 다 하고 밥 먹고, 일 다 하고 잠자려다가는 못 먹고 못 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일이 적으니, 조금만 더 하면 일을 다 끝내고 찬밥이라도 먹고, 일을 다 끝내고 새우잠이라도 잤다. <지금>은 일 다 하고 밥 먹으려면 굶어 죽고, 일 다 끝나고 잠자려면 잠 못 자 죽는 <나의 시대>다. 고로 일하다가 ‘기도 시간,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되면 칼로 무 자르듯 자르고, 비행기 시간 되어서 하던 일 다 집어던지고 떠나듯 해라.
5.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6. 저기 가는 ‘태풍’이 네게로 오고 있다. 저기 강 건너편의 저 ‘복’이 네게로 오고 있다. 먼저 ‘태풍’을 피하고, ‘복’을 받기다.
7. ‘눈에 안 보이는 존재자’가 바로 영원히 믿고 사랑할 자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8. ‘눈에 보이는 자’는 태풍 불면 사라지고, 계절 가면 없어진다.
9. 궁금하면 물어보고, 파 들어가고, 기도하여 육계로도 영계로도 보면서 행하여라.
10. (성자) 궁금하면, 실력껏 파 들어가 보아라.
11. 일을 해야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이루어진다.
12. <선악과>가 궁금해서 계속 깊이 기도했다. 결국 인봉을 뺐다. 동네 사람들이 옆에서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았어도 그것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나니 원통했다. 그러나 더 원통한 사람들은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도 모르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외치는 기성인들이다. 또한 선악과가 무엇인지 모르고, 매일 선악과를 따먹으며 범죄 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통하다.
13. 배운 것은 귀에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듯이, 영의 세계의 것도 배워야 들려오는 말이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14. 외국어도 배운 사람에게만 말이 들려오듯, 외국어 같은 영의 세계의 것도 배운 사람에게만 말이 되어 들려온다.
15. 귀가 있어도 청각이 떨어지면, 누가 말을 해도 희미하게 들린다. 이와 같이 ‘영의 귀의 청각’이 떨어지고, ‘영의 마음의 감각’이 떨어지면, 영계의 말도 희미하게 들려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다.
16.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사니, ‘영적 귀의 청각’과 ‘영적 마음의 감각’이 예리해져서 영계의 소리가 예리하게 들린다.

17.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청각이 둔해진다.

18.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이 없는 곳에 사니 청각이 좋다. 이와 같이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사는 사람도 ‘영적 청각’이 예민해지고 좋아진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을 안 듣고 귀를 막으니, ‘육적 귀의 청각’이 둔해졌다.

19. 하늘을 날아가는 매미가 오줌을 싸고 가니, 농부가 얼굴에 맞고 일하다가 비 온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뛰어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 이와 같이 ‘물방울만 한 환난’이 떨어졌는데, 두려워 피해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20. 뜨겁게 일하면 몸이 더워져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모르고 일만 한다.

21. 집 밖에 빨래만 널어놓고 나와도 구름이 끼면 마음 졸이고 불안한데, 환난 때 생명을 놓고 나왔으니 오죽이나 마음 졸이겠느냐.

22. ‘이미 발견된 것’보다도 ‘나머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궁금한 것이다.

23. 궁금하면, 파 보아라. 찾아보아라. 기도하여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행하여라. 실력껏 얻게 된다.

<2014년 3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최고로 누리려면, ‘영’으로 누리야 된다. 그래야 ‘육’같이 약하지 않고, 순간 누리고 끝나지 않는다.

2. ‘육’은 세상만사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한계’ 속에서 누리니, 누릴 것이 있어도 다 누릴 수가 없다.

3. ‘육’으로 누리면, 겨우 <지구 세상>에 한정되게 다닌다. 그러나 ‘영’으로 누리면, <우주 세계>와 <천국>과 <영의 세계>를 다니면서 누린다. 고로 육보다 수백만 조 더 누리게 된다.

4. ‘육’은 자기 사랑하는 대상자와 같이 살아도, 물질을 산같이 쌓아 놓고 먹고 쓰고 누려도 ‘한계 상황’에 처해 기본밖에 못 누린다.

5. ‘육’이 좋은 환경에 좋은 집을 가지고 100% 만족한 곳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살아도 ‘영’과 ‘혼’이 영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한계 상황’에 이르러 곤고하고,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된다.

6. <옷>을 ‘육’이라 하고, <음식>을 ‘영’이라 하자.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 놓고 입고 살아도 ‘음식’이 없으면 못 견딘다. 이와 같이 인간이 아무리 ‘세상만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육적으로 누리며 살아도 ‘전능자 창조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한계에 처해 지옥 고통을 받게 된다.

7.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늙지 않고 가만히 있고,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하셨다. “갈 길을 가야 가는 도중에 더 좋은 세상이 나오고,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해야 더 좋은 것을 얻는다.” 하셨다. “<목적>을 두고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해야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기쁘지 않다.” 하셨다.

8. 인간이 늙어 가니, 모두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변화시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인간은 <목적>을 두고 갈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하면서, 늙어 가면서 인생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다. 만일 인간이 할 일을 안 하고 늙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 희망도 없고 고통이다.” 하셨다.

9. <차>를 사 놓고 안 쓰면, 그만큼 헛 차는 안 된다. 그러나 안 쓰니 ‘보람’이 없고, 차로 인해 ‘얻을 것’도 얻지 못하고, 차로 인한 ‘기쁨’도 누리지 못한다. <인생>도 그와 같다.

10. 늙기 전에 어서 하여라!

11. 육신이 늙어 죽으면, 못 가지고 간다고 생각 말아라.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행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영혼’이 만들어지고 구원받고 휴거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혼’을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12. <휴거>되는 데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많이 줘도 시험문제의 답을 모르면, 답을 못 쓴다. 시간을 조금 줘도 시험문제의 답을 알면, 답을 쓴다. 이와 같이 <휴거되는 법>을 알면, 시간이 적게 남았어도 휴거된다.
13. 휴거가 중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시간이 적게 남았어도 휴거될 수 있다.
14. <휴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휴거될 시간이 수십 년 남았어도 휴거되기 불가능하다.
15. 기도하고, 성자께 계시를 받고, 성자와 대화하고, 말씀을 귀히 들으면서 휴거가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16. 너에게 실력이 없으면, 성자가 땅에 보낸 구원자에게 배워라!
17. <휴거>는 ‘창조 목적’을 이루고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자들의 영이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다. 인간이 휴거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휴거된 영들에게 <최고의 천국, 신부 황금성>을 주신다. 휴거되어 <신부 황금성>에 오르려면,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돼야 한다. 이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영원한 삶이다. 휴거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세세토록 후회하면서 살아간다. 휴거된 영들이 얼마나 잘됐는지 영원토록 모르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휴거된 영들만 <천국>에 보내신다. 고로 휴거되지 못한 영들은 휴거된 영들이 어디에 가서 사는지 모른다.
18. 섭리사에서도 그 단계로 행하여 그 단계에 오른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산다.

<2014년 4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이 시대에 성자가 주시는 말씀의 근본을 깊이 배우는 만큼 희망이 이루어져 기쁘다.
2.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달은 자’와 ‘말씀을 깊이 안 배우고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 최고의 희망과 꿈이 이루어진 자’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자’같이 차이가 난다.
3. 세상에는 ‘자기 소원을 이루고 사는 자’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 희망에 차서 사는 자’가 있다.
4. ‘희망을 이루고 사는 자’와 ‘희망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사는 자’ 둘 다 기뻐하며 산다.
5. 누가 희망을 이루고 기뻐하며 사는지, 누가 아직 희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목적을 향해 희망 있게 사는지는 ‘겉’만 봐서는 모른다. 두 쪽 다 기뻐하며 살기 때문이다.
6. 희망을 이룬 자만 불안하지 않고 100% 기뻐하며 산다.
7. ‘이 시대 희망을 찾은 자’는 <새 시대 사람>이고, ‘이 시대 희망을 못 찾은 자’는 캄캄한 기성에 사는 <구시대 사람>이다.
8. 시대 구원자를 만나 뜻을 깨달은 자가 희망을 찾은 자다.
9. 아는 것이 희망이다. 알아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 지금 이 시대는 <휴거 시대>로서 당대에 한 번뿐인 <휴거 기간>이다. 마치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 사람이 ‘분’과 ‘초’를 다투듯 하는 시대이다.

11. <육>은 땅에서 휴거되고, <혼>은 혼으로서 휴거되고, <영>은 영으로서 휴거돼야 한다.

12. <육>은 ‘땅’에서 휴거를 이루는데, 육이 ‘시대 구원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시대 성약 말씀, 휴거 말씀, 신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성자와 사랑 일체 됨으로 이룬다.

13. <혼과 영은> ‘자기 육의 행위’를 받고 ‘신부’로 변화된다. 그렇게 땅에서 살다가 성자 본체가 오시면, 혼이 영과 일체 되어 ‘휴거의 영혼’으로서 성자 본체를 맞고 <천국 황금성>에 가게 된다.

14. <휴거>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사 가듯 할 일이 아니다. ‘자기’가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고 완성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자의 사랑의 신부’가 돼야 휴거될 수 있다.

15. 오래된 사람이나, 이제 온 사람이나,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중년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행해야 되니까 절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과 행실>이 필요하니, 누구라도 휴거를 장담할 수 없다.

16. 자기 성격과 근성을 고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만드는 것, 성자를 사랑하여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성자의 신부로 변화시키는 것 등은 누구든지 자기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한다. 자기가 행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17. 자기 육과 혼과 영을 변화시켜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것은 누가 대신 해 줄 수 없다.

18.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자기 육과 혼과 영이 변화를 이루고, 점점 완성되어 휴거된다.

19. <휴거>는 ‘인물’로나 ‘체구’로 되는 것이 아니다.

20.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이 되면 “아~ 이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기에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으니, 운동선수가 되기에 유리하다.” 하며,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휴거>는 ‘겉모습’을 가지고서는 장담을 못 한다.

21. ‘휴거되기에 유리한 자’는 이런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낸 ‘시대 구원자’가 주는 <시대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알고, 믿고, 깨닫고, 정확히 행하는 자다. → 그 터전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자신을 변화시켜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시대 구원자와 일체 된 자다.

22. 누구를 막론하고 ① 자기를 구원하고 휴거시킬 자가 누구인지 100% 알고, ② 그를 믿고 따르며, ③ 그를 통해 전해지는 <성자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휴거된다.

23. 지금은 <휴거 때>이며, <휴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4. 지금은 <휴거 때>이고, 그나마 <휴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간이 부족하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다.

25. 시간이 부족하니, 섭리사에 늦게 온 자들은 더욱 시간이 없다.

26. “<시간>으로 보나 <이들이 하는 행위>로 보나, 아직 휴거되지 못한 자들이 휴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이 무너진 격인데,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하고, 성자에게 간구했다.

27. (성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시간이 부족해도 누구나 휴거될 수 있다.

28.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적게 남았는지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29.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시간 문제>는 해결된다. ‘비행기’로 가느냐, ‘차’로 가느냐, ‘자전거’로 가느냐, ‘뛰어서’ 가느냐, ‘걸어서’ 가느냐가 문제다.

30. 휴거도 그러하다. 휴거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31.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비행기’로 가듯이,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사랑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간다면, 누구나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휴거될 수 있다.

32.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이 적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남은 시간이 적고, 자기 소원을 이루는 데 남은 시간이 적고, 휴거되는 데 남은 시간이 적지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며 사느냐>가 문제다.

<2014년 4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행해야, 안 될 것도 되게 된다. 하나님의 예정된 것도 ‘전력’을 다하지 못해 못 얻는 자가 태반이다.

2. 만사의 모든 일들이 그 행한 대로 되어서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면 그만큼 모든 일이 되어진다.

3.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을 하지 못한 데서부터 인간의 ‘사랑의 타락’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려는 모든 ‘사랑의 축복’도, ‘삶의 모든 축복’도 깨어지게 되었다.

4.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수십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본체>시다.

5. 부모가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기르고 대하고 살 듯이, 하나님 역시 <사랑의 본체>시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사랑으로 기르시고 대하심으로 사랑의 개인, 가정, 민족, 세계를 만드시고, ‘사랑의 천국’을 이루시려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6.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 사랑>으로 대하듯이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게 된다.

7. 어느 시대든지 ‘진정한 사랑’으로 산 자들은 종의 시대든지, 아들 시대든지, 신부 시대든지 하나님과 ‘사랑의 천국’을 이루며 살았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메시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믿고 사랑하며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지상에 목적하시는 ‘사랑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8.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려고 하며,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지상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서는 ‘사랑의 천국’에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9. ‘사랑의 지상천국’은 하나님과, 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야만이 지상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다.

10. 하나님의 시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만 산다고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포한 지상천국을 이루며 살지는 못한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날마다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면서 사랑하며 살아야, 그의 신부가 되어 ‘지상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같이 천국을 이루고 산 자들이 죽으면, 그 영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11.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어렵다고 행치 않은 자는 지상에서 살 동안에 위로받는 신앙생활이나 했을 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

12. ‘확실히’ 배우고, ‘확실히’ 실천해야 하늘나라에 ‘확실히’ 가고, 지상에서도 지상천국을 상속받아 살게 된다.
13. 하나님과 성자는 몰라서 못 했다는 자들이 없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라고 하셨다.
14.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은 많은데, 말씀대로 그의 생각대로 행하며 믿는 자들은 마치 명승지같이 많지 않다.
15. 지금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자들은, 더욱 목숨을 걸고 살아야 제대로 부활이 되고 ‘사랑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된다. 누구든지 100% 안 하면, 100% 안 된다.
16.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만 목숨 다해 사랑할 줄 알고 형제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치 못했기 때문에, 형제 가운데 온 메시아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미워함으로 죽이게 된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한 것이다.
17. 몰랐든지 알았든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미워하든지 악평하면 자기만 손해이고, 자기 영혼만 죽어 사망에 처한 자가 된다. 그러나 미움 받은 자는 생명권에 빛날 뿐이다.
18. 하나님과 주만 목숨 걸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는 자를 목숨 다해 사랑하며 자기 몸같이 대해 줘야, 싸움도 미움도 없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19. 이 시대에 하나님은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인간이 지키지 못함으로 형제끼리 신부들끼리 서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천국보다 지옥의 삶이 일어난 것이다.
20. 잘못 알던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알았으니, 이제 행해야 된다. 몸부림쳐 행하는 자라야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시대 각자의 천국을 이루며 살게 된다.
21. 말씀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치 못하여 못 이루기 때문에, 행치 못함을 회개하여야 다시 이룰 수 있다고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다.
22.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왜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 몸같이 형제를 사랑치 않았느냐 하고 한마디도 묻지 않으신다.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심판만 하시고, 한 자는 한 대로 대해 주신다. 이는 마치 과일나무의 주인이 과일을 안 얻 나무보고 화가 나서 왜 열매를 안 열었냐고 하며 다투지 않는 것과 같다. 나무 본질로 인하여 못 열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다 똑같이 퇴비하고 수고했지만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자는 본질, 성격, 마음,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23. 형제들이 잘못된 것만 잘못 알고 미워하며 대하지 말고, 정신이 살아서 바로 보고 대해야 한다. 자기 인식관이 잘못된 자는 형제들이 바로 행하여도 바로 보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다. 형제가 잘못했어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갈 길을 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든지 책망하든지 행하시게 하여야 된다.
24.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과,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대하며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며 구원을 받고 시대 천국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다.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부귀영화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볼 때 이들만 못한 자들이다.
25. 사랑하는 애인끼리도, 부부라도 목숨을 다해 서로 사랑하여야, ‘사랑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살게 된다.
26.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 노력, 기술 등을 다하지 않고 일부 조금의 힘으로만 한다는 것이다. 건강도, 먹는 것도, 운동도, 말도, 배우도, 모든 행동도 조금만 하면 인생이 병이 들든지

무기력해지든지 정상으로 살지를 못하게 된다.

27. 사람이 하기는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행위에 따라 그 정도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28. 사람은 지금 그 정도 위치보다 더 잘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완전하게 더 뛰고 행하는 길이다.

29. 최선을 다하고 사는 자와 보통으로만 행하고 사는 자를 비교하면, 최대로 사는 자와 보통으로 사는 자의 차이가 나타난다.

30.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보통으로 사랑하고 산다. 하나님은 100% 사랑해야 만족하신다. 사랑의 세계는 조금만 사랑하면 더 힘든 것이다. 만족하고 충만토록 사랑하여야 힘들지 않은 것이다.

3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고 제일주의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32. 변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사랑의 결실’을 본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변하지를 않는다. 아무리 사랑을 했어도 가다 변해 버리고 말면 거기서 끝인 것이다. 지금까지 사랑한 것이 영원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는 것이다.

33. 육신을 중시하여 이뤄지는 ‘이성적 사랑’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해도 얼마 못 가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이별하고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과 정신적인 진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성의 사랑에 비해 너무도 크고 웅장한 일을 하고 이로 인한 사랑은 ‘영원한 천국’을 이뤄 살게 한다.

<2014년 4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나뭇가지 흔들림을 통해 알고, 몸에 스침을 통해 아는 것이다. <행위>와 <마음의 느낌>으로 ‘그 행한 일’을 아나니, <입>은 ‘거짓’을 말함이라.

2. 속이는 자는 거짓을 참과 같이 말한다.

3. 입으로 거짓을 행하고 몸은 행치 않은 자며, 양심도 그러한 자다.

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영과 육의 재판장’이시로다. ‘의인과 악인의 재판’을 ‘매일’ 하신다. <말씀>으로 그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하시고, ‘용서의 재판’을 하여 다시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

5. 하나님이 <죄>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이다. <죄>로 인하여 인생이 사망으로 가고, <죄> 때문에 영혼이 죽는다. <죄>를 없애는 것은 병든 자의 병을 없애 주는 것이나 같고,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이나 같다. 병을 고쳐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죽고, 쓰레기를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병들어 더러워져 깨끗한 곳까지 냄새나서 더러움 속에 살게 된다.

6. 아무리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어도 냄새나면 못 살듯이, 영이 안 보여도 죄짓고 썩으면 못 산다.

7. 왜 하나님은 죄를 간섭하시냐고 인생들이 귀찮은 듯 싫어하지만, 죄 문제를 간섭하여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인생을 천국 되게 못 만든다. 인생을 창조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에, 관리하고 간섭하셔야 존재시킨다. 짐승을 기르든지, 꽃과 식물을 기르든지, 사람을 기를 때 병든 것과 잘못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으면 그뿐 아니라 다른 성한 것까지 모두 병들고, 더럽게 되고, 다 치우쳐 나빠지게 되고, 못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신이 창조한 인생들을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이다.

8.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간섭’하신다. 회개시켜 정결케 하여 ‘휴거’시키신다.

9. 인간이 회개하는 대로 ‘용서’해 주시고, ‘청산’해 주신다.
10. ‘죄를 없애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11. 부모가 어린아이와 같이 사니 더러우면 병들어 죽고 못 사니 간섭하듯이,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살기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받으니, 죄를 ‘간섭’하신다.
12. 죄 문제를 해결하여야 천국 문제,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고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다.
13. 하나님이 세상 죄를 ‘간섭’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세계, 사탄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자도 죄를 회개하고 선을 행하라 하신다.
14.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간섭하면 싫어하듯이, 하나님이 죄를 간섭하시고 심판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한다.
15. 인간은 죄를 간섭하면 지적하고 죄인 취급하며 죄를 그같이 대하고 끝나지만, 하나님은 죄를 회개시켜 없애 주시고, 의인 되게 해 주고,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시기 위해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16.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숨어 살면 기간이 지나면 끝난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지으면 속일 수도 없지만, 죄를 빨리 회개시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마치 암 환자를 그냥 놓아두면 앞으로 죽고 말듯 그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 사망으로 가게 되고 만다. 고로 꼭 회개시켜 의롭게 만들어 <구원>시키고, <휴거>시켜 주신다.
17. <메시아>는 ‘죄를 해결’하러 오시기에,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가지고 오사 ‘그 말씀의 법’을 범하면 죄로 여기고, ‘그 말씀의 법’을 표준 하여 죄와 의를 판단하며 심판하고 해결한다.
18. 사람들은 죄를 간섭하면 싫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도 대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간섭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해결하여 살리기 위함’이다.
19. 자기 죄는 사람에게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다 고함으로 해결해야 된다. 만일 고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면, 그 죄는 마음에 남아 있어 그로 인하여 될 것도 안 된다.
20. 하나님이 몰라서 죄를 호리라도 남김없이 모두 다 고하라는 것이 아니다. ‘고한다는 것’은 그 죄를 자신이 지은 것이라고 ‘시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21. 가정에서 형제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하고 부모가 지적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것과 애인이 지적하는 것이 다르듯,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의도와 뜻은 인간과 다른 것이다.

<2014년 4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행한 대로 갚아 줘야 손해가 안 간다.
2. <행위>가 ‘값’이다. (교역자들의 임명을 놓고 기도할 때 성자가 하신 말씀 다른 것들도 이와 같이 이리하다.)
3. 하나님은 인간이 의를 행한 만큼 갚아 주신다.
4. ‘물건의 가치만큼’만 돈으로 대해 주듯, 사람도 ‘행한 만큼’만 대해 준다. (내게 행한 대로 해 주려니, 교역자로 보낼 자가 없었다.)
5. 세상을 보아라. 모든 존재물들이 존재하다가 때가 되면 썩고, 죽고, 사라진다. 고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때’를 정하

시고, 때가 다 되기 전에 행하게 하셨다.

6. 과일은 생물이라서 때가 되면 썩기 때문에 썩기 전에 먹어야 된다.

7. 과일을 사다 놓고서 ‘지금 못 먹으면 다음에 먹어야지.’ 했는데, 지난 후에 보면 먹을 기회가 없었다. 과일은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

8. ‘시간’은 계속 흐르고, ‘때’는 한 번 가면 안 온다.

9. 때가 되면 사람이 늙고 죽는다. 고로 때가 다 되기 전에 할 일을 해야 된다. 때 지나면 다 끝난다.

10. <영의 세계>는 ‘시간과 때’의 구애를 받지 않기에 시간에 쫓기지도 않고, 재촉하지도 않는다. 늙거나, 썩거나, 죽거나 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영의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다. 고로 시간에 쫓기는 일이나, 재촉 당하는 일이 없다.

12. <지상 세계>의 운영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도 ‘지상의 때’에 맞춰 행하신다. 고로 <영의 세계>도 재촉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 미리 행하신다.

13. 성자는 ‘영’이시다. 고로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때’ 때문에 급히 재촉하시며 서두르신다.

14. ‘썩기 전’, ‘늙기 전’에 행하기다.

15. <지상 세계>에는 ‘때’가 있다. 고로 항상 ‘제때’ 행해야 된다. 그러나 ‘제때 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만큼은 미리 해야 된다. 그래야 ‘제때’ 하게 된다.

16. 과일도 그때 못 먹으면 맛이 변하고 썩는다. ‘때’도 그러하다. 때가 지나면 맛이 변하여 행할 의욕이 없고, 하고픈 마음도 없어지고, 호기심도 없어진다. 고로 ‘제때’ 해야 된다.

17. 그때 못 하면, 상황이 뒤바뀌어 그 일을 못 한다.

18. 사람이 ‘할 마음’은 있는데, 늙어서 맛이 변하여 못 하는 것이다.

19. ‘다른 사람도 일찍 안 하는데, 내가 일찍 할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때가 네가 해야 할 때다.

20. ‘개척자의 길’을 가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21. 개척자는 항상 누구보다 최선두로 간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오는 자는 끝에 온다. 너무 늦다.

22. 가령 10000명이 목적지를 두고, 산길을 떠났다 하자. 개척자는 맨 앞에서 새벽부터 떠났다. ‘이렇게 일찍 가야 되나?’ 생각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자들을 위해 일찍 떠났다. 3000명쯤 떠날 때는 날이 새어 버린다. 5000명쯤 떠날 때는 아침이 된다. 7000명쯤 떠날 때는 낮이 된다. 맨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늦어서 개척자가 간 곳까지 못다 가고 해가 져 버린다. 맨 앞에서 일찍 떠난 개척자만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간다.

23. ‘개척자의 삶’을 살아라. 새벽부터 일찍 떠나야 그 날 갈 길을 다 가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행하고 온다. / 인생 일생은 ‘하루’와 같다. 일찍 행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라.

24. 세상은 ‘때’를 지켜야 된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진다. <과일>도 때가 지나면 썩어 없어지고, <집>

과 환경>도 때가 되면 썩어 없어진다. 때가 되니 썩어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늙어서 사용하지 못하니 썩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도 있다. 때가 지나가니, 마음과 정신에 좋아하고 기뻐하며 불타는 감동이 없으니까 ‘썩었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25.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만물과 모든 것을 실컷 사용하면서,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고 휴거시켜 천국에 가서 빛나게 사는 자는 ‘최고 값있는 인생’이다.

26. 인생 100년 중에서 <활동하는 기간>은 총 70년 정도다. <성장기>를 빼면, <활동기>는 50년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인생이 너무 짧다고 성자에게 말하니, 성자는 “그 정도면 적당하다.”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다시 성자에게 말하기를 “인생을 살아 보니, 50년은 너무 짧습니다. 시간에 쫓겨 할 일을 못 합니다.” 하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제때 제시간에 하면 충분하다.” 하셨다.

27. 하나님께 인생 100년이 적당하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28. (하나님) 하늘과 땅의 계획을 모두 구상해서 때를 정했다. 인생 100년이 다가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의 삶이 있으니, 인생 100년은 적당하다. (하셨습니다.)

29. (하나님) 밥 먹는 시간이 1시간이면 적당하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시간 5분이면 적당하듯이, 인생 삶의 모든 시간이 100년이면 적당하다. (하셨습니다.)

30. (하나님) 사람이 자기 양대로 한 끼에 한 상이 적당하듯이, 한 인생이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인생 100년이 적당하다. (하셨습니다.)

31. (하나님)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활동하고, 세 끼를 먹고, 잠을 잘 때까지 하루 24시간이 합당하듯이, 인생 100년이 적당하다. (하셨습니다.)

32. (하나님) 시간이 부족하면, 일을 하면서 조금씩 서두른다면 충분하고, 잠을 좀 덜 자면 충분하고, 정신 차려 서둘러 재촉하면서 하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33. (하나님) 인생 100년보다 더 살게 하면, 마치 화장실에 갈 시간을 더 준 것과 같다. 고로 볼일을 다 본 후에 화장실에서의 나머지 시간은 뜻이 없는 것 같은 격이다. (하셨습니다.)

34. (하나님) 화장실에서는 볼일 볼 시간만 쓰고 나와야 하듯, 지구에서 자기 육신을 통해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는 영을 가지고 영계로 떠나야 된다. (하셨습니다.)

35. (하나님) 지구 세상에서 인생 100년을 살 때, 신령한 말씀을 받아 신이 되어 사는 자는 인생 수백 년을 산 것같이 할 일을 한다. (하셨습니다.)

<2014년 4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36. 따뜻한 봄은 ‘꽃 세상’이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과일 세상’이 된다. 꽃보다 열매가 좋으니 ‘꽃 세상’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열매를 먹고 좋아한다.

37. <이 세상>은 육의 세상으로서 ‘봄의 꽃 세상’과 같다. <천국>은 ‘가을의 열매 세상’과 같다.

38. <육체 사랑>은 ‘꽃 세상’, <뇌 사랑>은 ‘과일 세상’이다.

39. <꽃 세상>일 때는 ‘꽃’이 최고라 하지만, <과일 세상>이 되면 ‘꽃’ 생각을 잊는다.

40. <이 세상>은 ‘꽃 같은 사랑의 세상’이고, <천국>은 ‘열매 같은 사랑의 세상’이다.
41. 이 세상의 것들은 천국의 것들에 비하면, 너무도 차원이 낮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꽃 같은 세상’으로 창조하셨고, <천국>은 ‘열매 같은 세상’으로 비교가 안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 차이는 ‘자전거’와 ‘비행기’ 같다.
42. <육신>도 ‘꽃’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때가 되면 늙고 죽는다. <영>은 ‘열매’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영’은 꽃이 시들듯 시들지 않는다.
43. ‘꽃’은 꽃향기가 좋지만, ‘열매’는 실제로 먹고 몸에 영양분을 주니 비교가 안 된다. 육과 영도 그러하다.
44. <육체 사랑>은 ‘꽃 같은 사랑’이다. <뇌 사랑>은 ‘과일 같은 사랑’이다. 뇌 자체가 과일이다. 고로 비교가 안 된다.
45.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는 <육체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은 사랑의 세계인데도 <육체 사랑>이 없지? 천국의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만도 못하네?’ 하고 의문을 품는다. <천국>에는 ‘육체 사랑’보다 더 근본적인 사랑이 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사과나무의 꽃 같은 사랑’이라면, <천국의 사랑>은 ‘사과나무 꽃의 결실체인 사과 열매와 같은 사랑’이다. ‘뇌 자체’가 ‘과일’이다. <세상 육체 사랑>은 ‘둔감한 몸으로 느끼는 사랑’이다. <천국 뇌 사랑>은 ‘가장 예민한 뇌로 느껴 정신과 영으로 느끼며 하는 사랑’이다. 고로 엄청나게 차원이 높다.
46.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죽이나 잘해 놓지 않으셨겠느냐.
47. <이 세상>은 ‘그림의 떡을 보는 사랑의 세계’고, <천국>은 ‘실제 떡을 먹는 사랑의 세계’다. 고로 비교가 안 된다.
48. <이 세상의 것>은 보고, 먹고, 취하고, 얻고, 자기 것으로 삼아도 만족도가 낮다. 두뇌의 차원이 낮고, 생각의 차원이 낮고, 한계가 있다. 고로 양은냄비가 순간 달궈지고 식듯이 잠깐, 번득, 그 짧은 순간에만 누리고 만다. ‘육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은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육’은 걸어서 하루에 100리쯤 간다. 100리는 4만 미터다. ‘영’은 1초에 100리를 간다. 고로 비교가 안 된다.
49. <지구 세상>은 70억이 사용한다. <천국>에서 지구 정도의 크기이면, 하나의 성 크기밖에 안 된다. 그만큼 천국은 지구와는 크기부터 비교가 안 된다. ‘영’이 사용하니까 넓고 크게 사용한다.
50. <천국>의 어떤 건물은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 육신은 이해를 못 해서 그 크기를 말 못 한다.
51. <천국>은 영의 세계다. 고로 천국의 영들끼리만 이야기가 통하는 세계다. <지상 세계>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야 통한다.
52. 그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를 보고 사는 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통한다. 이와 같이 천국도 그러하다. 고로 천국을 보고 왔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통한다.
53.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말을 믿어 줘도 ‘직접 보고 온 사람’과는 감동과 생각의 차이가 너무도 다르다.
54. <천국의 어떤 한 세계>는 ‘우주의 별 하나’만 하다. 그 크기가 ‘지구’만 하다는 것이다. <천국의 어떤 나무>는 ‘이 세상의 한 나라’만 하고, <천국의 어떤 기념 돌>은 ‘이 세상의 한 나라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 <천국의 어떤 집>은 ‘지구’만 하기도 하다. 집이 그렇게 크다고 해서 지구처럼 많은 사람이 살지도 않는다. 쓸 때만 쓴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땅과 산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수만 배 더 가지고 있듯이, 천국에서도 그만큼 넓은 크기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55. 이 세상에서 자기 육을 가지고 전능자의 일을 한 것을 천국의 것으로 따져서 받으니, 상상도 못 하게 받는다. ‘영이 받기 때문’이며 ‘전능자가 주시기 때문’이다.

56. ‘동료의 일을 해 주고 수고비를 받는 것’과 ‘임금의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비교가 안 되게 다르다.

57. 선생의 할아버지는 ‘고종 왕’을 충성스럽게 받들고 그를 위해 수고했다. 어느 날 고종이 이야기하는 중에 “네 고향에 땅이 있느냐. 선조들을 모실 선산이 있느냐.” 물었다고 한다. 이에 “선조의 묘를 쓸 곳은 없습니다.” 하니, 고종은 “네 고향에 좋은 산이 있나 보아라.” 했단다. 이에 “저희 마을에 붙은 <계룡산>이 있습니다.” 하니, 고종이 “그 산을 선조를 모시는 산으로 주겠다.” 했단다. 이에 고종이 <계룡산>을 주어 할아버지가 관리하다가, 후에 시대가 바뀌어 다시 국가에 내주었다 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한 대로 천국에서 영이 쓸 곳으로 갚아 주신다. 그러나 ‘이 세상의 땅 한 평’과 ‘천국의 땅 한 평’은 만 배 차이도 아니고 10만 배 차이도 아니다. 아예 비교가 안 된다.

58.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는 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 계산으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된다. 구원받고 휴거된 자에게는 ‘천국의 집’을 준다. 그 집은 이 세상에는 없는 집으로서 값이 엄청나다. ‘영원히 있는 집’이니, 오죽 값이 나가겠느냐.

59. 어떤 영은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공력으로 천국에서 300층, 500층짜리의 집을 받기도 한다. 이 세상에는 그런 높이의 집이 없다. <이 세상의 집>은 철근과 콘크리트로 짓기에 100년, 1000년이 가면 다 무너진다. <천국의 집>은 영원하다. 그러나 천국의 그 급에 갔다 온 사람과만 이 이야기가 통하고, 믿는 자와만 이 이야기가 통한다.

60. <천국>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신 세계’다. 이 세상의 발달된 도시 ‘미국 맨해튼’과 비교해도 아예 비교가 안 된다.

61.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보아라. 하나의 별을 ‘지구’만 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해, 달, 별, 지구를 보아라. <천국>은 어떠하겠느냐.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안 되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
2. ‘주의 뜻대로, 성자의 뜻대로’다.
3. ‘뜻대로’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획대로,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를 말한다.
4. 한 번 자기 뜻대로 하기 시작하면, 습관이 되어 계속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
5.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볼 수 있다.
6.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평생 그 일이 안 끝난다.
7. 모든 것을 자르고 끊고, ‘오직 주 뜻대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하려면, 아예 자기 계획이 없어야 된다.
9.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자기 뜻’도 못 이루고, ‘하나님 뜻’도 못 이루게 된다.
10.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다!
11. 전능자의 뜻대로 안 한 것은 문제가 생기고, 남는 것이 없고, 육에서 끝난다.

12. 전능자의 뜻대로 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
13. 아예 실 가닥만큼도 뜻을 벗어나서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14. 깊은 기도를 해야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온다. 그리고 뜻이 아닌 것도 생각나서 분별하게 된다.
15. 같은 공적(公的) 일도 자기 육신을 중심해서 할 일이 있고, 영적인 것을 중심해서 할 일이 있다. 역시 우선권은 '성자 뜻대로'다!
16. 전능자의 뜻대로 살아 본 자만 전능자의 뜻대로 한다는 것을 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체질이 된 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기도하니,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인 줄 안다.
17. 백지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구상을 받은 후에 그림을 그리듯, 자기 생각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다.
18.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깊이 기도해야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어 깨닫게 하신다.
19. 오직 <본체>를 통해 '성자의 뜻'이 전달된다.
20. 뜻대로 안 하면 <구원>이 안 된다.
21. 뜻대로 안 하면, <휴거>가 안 된다.
22. <성경>도 뜻대로 풀어야 행할 수 있다.
23. 자기 차원대로 자기 뜻을 이룬다.
24. 일부는 '성자 뜻대로', 일부는 '자기 뜻대로' 하면서, 모두 다 성자의 뜻인지 안다.
25.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늘 점검하고 분별해라.
26. 하나님 안에서 행해도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이 많다.
27. 종이 주인의 일을 해 줘도 자기 뜻대로 한다.
28. 단상에서 성자의 말씀을 외쳐도 자기 생각을 중심해서 외치면, 똑같은 말씀을 전해 줘도 자기 뜻을 외친 것이다.
29. 주가 시킨 대로 주의 심정과 주의 마음으로 외쳐야 '성자 뜻대로'다.
30. 지도자가 따르는 자의 의향과 입장을 듣고 행하다가 '성자의 뜻'을 벗어나 '따르는 자들의 뜻'을 행하게 된다.
31.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뜻'이다.

<2014년 4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32. 오직 '주의 뜻대로, 성자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다. <반복> '뜻대로'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획대로, 그 생각대로, 그 마음대로'를 말한다.

33. 기계는 사람이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며 사람의 뜻대로 한다.
34. 기계같이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대로 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35. 자기의 계획, 타인의 계획, 형제의 계획 등 그 어떤 계획도 없이 빈 마음으로 오직 주의 손에 이끌려 주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뜻을 행한 자'다.
36.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주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37. 100% 묻고, 100% 주 뜻대로 행하기다.
38. 불법을 행한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39. 자기 차원에서 하지 말고, 깊은 기도를 하여 성자의 생각을 받고 성자의 차원에서 해라.
40. 올해는 <성자 사랑의 해>다. '성자에게 묻고 분별하는 해'다.
41. 하나님의 원 뜻을 그대로 복사한 것같이 맞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다.
42. '성자의 뜻'을 행하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43. '자기 뜻'을 행하면, 초라하고 보기 싫고 욕적이다.
44. '성자의 뜻'을 행하면, <답>이 생긴다.
45. '자기 뜻'을 행하면 <문제>가 생긴다.
46. 사람들은 어떤 것이 성자의 뜻이고, 어떤 것이 뜻이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 성자가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이 '성자의 뜻'이다. <성자의 말씀>이 '성자의 뜻'이라는 말이다.
47. 성자의 뜻대로 안 하면, 성자가 돕지 않으신다. 고로 문제가 생긴다.
48.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다 보면, 성자의 뜻대로 못 하게 된다.
49. 아예 빈 몸, 빈 마음으로 성자에게 나아가서 성자의 욕으로 쓰여져라. 성자가 필요하면 성자가 알아서 하시니, 성자에게 맡겨라.
50. '자기 뜻'은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주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51. 돕는다고 해서 다 '주의 뜻'은 아니다.
52. 돕지 않아도 '주의 뜻'인 것이 있고, 도와도 '주의 뜻'이 아닌 것도 있다.
53. 성자의 뜻을 여러 가지로 깨달으라고, 여러 가지로 말해 준다.
54. 사랑하는 자라도 뜻대로 안 하면 마음에 거슬려, 하나님과 성자는 상황과 여건을 틀어 버리신다.
55. <뜻>은 '전능자의 계획'이며 '법'이다.

56. <뜻>은 ‘법’이다.
57. 뜻을 행해야만 잘한 것이다.
58. 뜻을 행해야만 형통한다.
59. 뜻을 어기고 행해 놓고서, 주가 시킨 일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
60. <뜻>대로 했는지, ‘말씀의 거울’로 보아라.
61.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희생해도, 바쳐도, 일을 해도 모두 법을 범하고 죄인이 되어 성자의 마음을 거스른다.
62. ‘자기중심, 자기 생각’은 사탄이 제일 짝 잡고 행하는 일이다.
63.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버려야 성자의 마음이 온다.
64. 오직 100% 성자의 말씀이고, 성자의 마음이고, 성자의 생각이라야 ‘성자의 뜻대로’다.
65.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 뜻을 행하면서 ‘성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66. 자기 뜻대로 정원에 소나무를 심었고, 성자의 뜻대로 정원에 소나무를 심었다 하자. 어떤 소나무가 성자의 뜻대로 심은 나무인지는 ‘성자와 행한 자’만이 안다.
67. 똑같은 일을 했어도 ‘시켜서 한 일’과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은 엄연히 다르다.
68. 성자의 마음을 거스르지 말고 행하여라.
69.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들어주는 일은 추진하지 말아라.
70. <성자>는 ‘하늘의 전능자’요, <인간>은 ‘땅에 속한 약한 존재’다.
71. 육성으로 행하면, ‘화’가 있다.
72.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귀히 쓰임 받아라!
73. 뇌의 차원이 낮으면, ‘성자의 뜻 차원’에 미치지 못하여 ‘성자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
74. 뜻대로 안 하는 자는 성자와 분체의 마음에 그가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전해져 온다.
75. 시킨 대로 안 하는 자는 성자와 분체의 마음에 ‘왜 뜻대로 안 했나?’ 하는 마음이 느껴져 온다.
76. 신령한 자는 타인의 마음을 느낀다.
77. 존재하는 것도 ‘눈’으로 봐야 보이듯, 행한 일들도 ‘마음의 눈’으로 생각해야 느껴져 온다.
78. (뜻에 대해 다 말씀하셨냐고 성자에게 물으니, 성자가 하신 말씀) (성자) 한마디로 ‘핵’을 말할 수는 있어도 풀어서는 못 한다.
79. 성자는 먼저 ‘핵’을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며 계시하신다.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지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비행기로 가느냐, 차로 가느냐, 자전거로 가느냐, 걸어서 가느냐'가 문제다.
 2. 이와 같이 '앞으로 인생을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빨리 행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시간이 좌우된다.
 3. 짧은 시간만 남았어도 오직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 살면 10배, 20배 빨리 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된다. 고로 긴 세월이 남은 자보다 낫다.
 4. 인생을 '하루'로 축소해서 보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전부터 일한 자'와 '오후부터 일한 자'를 보자.
-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일에 몰두해서 전심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또 '어떤 장비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공 여부가 좌우된다.
- 자기 남은 인생도 그러하다. '자기 힘으로만 사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힘으로 사느냐', '얼마나 전심으로 사느냐'가 문제다.
5. <적은 시간>만 남았어도 '뛰어가는 자'는 늦지 않고, <많은 시간>이 남았어도 '걸어가는 자'는 늦는다. '뛰어가는 자'와 '걸어가는 자'는 격차가 심하다.
 6. 오전에 떠났어도 걸어가면, 오후에 떠났으나 뛰어가는 자만 못하다.
 7. 마음먹고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격이다. 이는 걸어가는 자 앞에 뛰어가는 자와 같다. 신앙의 삶도, 자기를 만드는 데도, 휴거되는 데도 그러하다. 마음먹고 집중해서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서 해라. 이것이 뛰어가는 격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격이다.
 8. 오전에 떠났어도 걸어서 강을 돌아서 간 자는 아직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오후에 떠났으나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간 자는 앞서 가며 목적지를 만나기 직전에 있다.
 9. 기도, 관리, 전도, 강의해서 감동을 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순간'이 되기도 하고 '장시간'이 되기도 한다.
 10. 성자를 사랑하면서 성자의 육인 분체와 일체 되어 말씀을 중심하고 주 뜻대로 하는 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격'이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격'이다.
 11.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하다가도 일순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 한 세월이 가도 못 간다.
 12.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일체 되어 하면, '빛'같이 '영'같이 빠르게 행해진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육적으로 하면, 세월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13. 짐승이 사람의 구조로 창조되었어도 짐승은 사람과 비교가 안 된다. 짐승의 모양이 아름답고 멋있다 해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된다.
 14. 사람은 그 모양과 형상이 짐승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15. 사람은 아무렇게 서 있거나 앉아 있어도, 수백 가지 방향을 봐도 아름답고 멋있다.

16. 짐승이 최고 극치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어도, 사람이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갈 수 없다.
17. 사람은 앞모습도, 옆모습도, 뒷모습도 다 아름답다. 어떤 방향에서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우아하다.
18. 사람들 중에서 자기 노력과 책임으로 몸의 모양을 더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기도 한다.
19. 인간이 수십 가지 각도에서 봐도 그 모양과 형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20.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최고로 아름답고, 그다음에 ‘만물’이 아름답다.
21. 월명동도 어느 방향에서 보나 그 모양과 형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는 ‘자체 기본 형체’가 갖춰져 있고, ‘산세’와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22. 월명동은 <성자 사랑의 집> 옥상에서 봐도 아름답고, 호수 쪽에서 봐도 아름답고, 잔디밭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답고, 전망대에서 봐도 아름답고, 감람산에서 사방 천지를 다 둘러봐도 아름답다.
23. 아름답지 않은 곳을 보아라.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욱 알게 된다.
24.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지역의 기본 형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야 더 아름답게 빛난다.
25. 월명동은 ‘사람 형상 지역’이라면, 말거리는 ‘짐승 형상 지역’이다. ‘사람의 형상’이 뛰어나듯 ‘월명동’은 뛰어나다.
26. 월명동은 ‘하나님 보좌’ 같고, 돌매기는 ‘폭 파인 분지’ 같다.
27. <나무>는 물과 퇴비를 먹어도 배설물을 안 쐬다. <영>도 천국에서 아무리 먹어도 그와 같다.
28. (성자) 네가 내 말을 이해하니, 말을 해 준다.
29. 자세히 안 보면, 벗겨 놓고 봐도 모른다. ‘만물’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고, ‘전능자’도 그러하다. 자세히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그 구조와 형상을 모른다.
30. 봐도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 아는 만큼밖에는 봐도 더 이상 안 보인다.
31. 월명동도 자세히 봐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보인다.
32.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수십억만 가지로 표현하여 창조하셨다.
33. 사람의 같은 지체를 놓고도 그 아름다움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로 표현하여 창조하셨다.
34. 한 가지로는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 그 모양과 형상을 개성대로 수십억 가지로 창조하셨다.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짧은 시간에 빨리 휴거되는 길은 ‘성자 사랑에 불타서 뜨겁게 행하는 것’이며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빨리 실천하게 되니, 육과 혼과 영이 빨리 변화되어 빨리 휴거된다.

2. 성자와 분체를 사랑하고,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고, 기도를 깊이 하고, 분체를 통해 전해지는 성자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신령한 자'가 된다. 그리함으로 깊이 깨닫고 빨리 실천하게 되어, 육과 혼과 영이 차원 높여 빨리 변화되어 빨리 '휴거의 영'이 된다.
3.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령하지 않은 자다.
4. 성자의 말씀을 듣고 빨리 행하는 자는 신령한 자다.
5. 이 시대를 깨닫고 기도를 깊이 하는 자는 신령한 자다.
6. 성자 사랑에 불타면 신령한 자가 된다.
7. 기도는 끝까지 지구력 있게 해라. 집중하여 신령한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8. 집중하여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아라. 자기가 고칠 것을 보고 깨닫고 고쳐야 신령해진다.
9. 신령한 자는 자기 자신을 본다. 고칠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고친다. 그리함으로 생명 주관권의 영으로 변화된다.
10. 휴거를 위해 변화돼도 늦게 변화되면 <휴거의 때>를 놓친다.
11. 제때 변화, 제때 휴거다. 전능자의 때가 있다. 그때만 기회다.
12. 때 늦으면, 행했어도 보람이 없다. 유익이 없다. 얻지 못한다. 마치 기다리던 차가 떠난 후에 오면 차를 못 타니 소용없듯 그러하다.
13.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행했어도 늦은 것은 얻지 못했다.
14. 시험이 다 끝나고 답이 생각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휴거도 끝난 후에 갖추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자가 떠났으니, 혼자 헤매게 된다.
15.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릴 때는 안 따 주고, 떠난 후에 문을 따 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악한 자가 들어와 겁탈하게 된다.
16. 빨리 배우고, 빨리 알고, 빨리 깨닫고, 빨리 행해라. 그러면 육도 혼도 영도 빨리 변화되어 빨리 휴거된다. 성자가 재촉하실 때, 만사를 버리고 휴거에 집중해라. 때 지나면, 휴거되고 싶어 다 갖춰도 영원히 휴거되지 못한다.
17. 신령한 자는 늘 뇌 속에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 고로 성자가 부르는 소리를 마음으로 느껴 듣게 된다.
18. <세상 모든 일>도 '전적'으로 해야 그 일이 완성되듯, <휴거 일>도 집중하여 '전적'으로 해야 표가 나고 완성된다.
19. <휴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실 때도 최고로 중하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최고로 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런데 <휴거>를 보통으로 생각하고 살면, 전적으로 행하지 못하여 제때 휴거될 수 없다.
20.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1년에 할 것도 5년, 10년, 20년 동안 하게 되고, 하다가 말기도 한다.
21. 전적으로 하는 자만 표가 나게 변화되고, 300선으로 향해 올라간다.
22.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전적으로 해야 표가 나고 완성된다.

23. 충성하고 화목하여라. 충성과 화목한 사랑이어야 완전하다.

24. 목사, 강도사, 전도사, 관리자, 전도자들은 말을 거칠게 하면 안 된다. 말을 거칠게 하는 자는 <휴거 법>으로 볼 때 '휴거 200선'을 넘지 못한 자다.<휴거 200선>부터는 '말하는 것'도 보고, '이성 문제'도 확실히 보고, '성격'까지 다 본다. 잘못된 것을 다 고쳤는지 본다. '뇌와 행실'을 본 후에 온전해야 <휴거 200선 문>에 들여보낸다.

25. '우리 지도자는 선생님과 잘 통하니 <휴거 300선>에 올랐겠지?' 생각하지만, 화를 잘 내고, 말을 거칠게 하고, 밑의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휴거 200선>도 못 오른 자들이다.

26. <휴거 300선>에 오른 자는 얼굴 표정도 천사 같고, 화평한 말과 천사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말과 행실'로 성자와 분체의 향기를 풍긴다.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27. <회개>는 누가 말하기 전에 즉시 해라. 깨끗한 자가 보면, 그 행실로 인해 '죄의 냄새, 가식의 냄새, 형식의 냄새'가 나서 바로 안다. 그리고 기도하면, 성자가 그 사람의 혼을 보여 주시며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니 바로 안다.

28. 죄를 짓고 시간을 끌면, 죄 짐으로 인해 공적 일을 더 못 하게 된다.

29. 모기가 자기 살에 붙어서 피를 빨고 있을 때 즉시 때려잡듯이, 죄를 지으면 사탄이 죄의 빨대를 네 뇌에 꽂고 네 생각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즉시 회개함으로 '사탄'을 때려잡고 '죄'를 때려잡아라!

30. 죄를 짓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다.

31. '입'으로 죄를 고하며 성자에게 죄를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해라. 그리고 '행동'으로도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32. 술, 담배, 이성, 음란물, 인터넷 오락 등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입'으로도 고하고, '행동'으로도 안 하는 것이 <회개>다.

33.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으니, 자기를 엄히 다스려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찢값을 받게 법을 정해 놓으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찢값을 받게 된다. <회개>만이 죄를 벗어나는 길이다. 더 좋은 것은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이 죄와 상관없이 사는 길이다.

34.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자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주고 희생해 주며 대가를 치러야 된다.

35. 누가 죄를 지었을 때, 구원자는 그 죄를 빨리 없애 주기 위해 성자에게 고하여 빨리 죄를 처분해 버린다.

36. 고로 죄를 지었으면, 빨리 구원자에게 고하여라. 회개하여라.

37. <죄를 용서받는 조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다.

38. 황금어장은 혼자서 못 다스린다. 하나로 뭉쳐서 함께 다스려라.

39. <전도 공적>은 휴거되는 데 있어서 크고도 큰 영향을 준다.

40. 목사, 강도사, 전도사 간판만 달고 있지 말고, 전도하여 생명을 구해라. 생명을 구하라고 직책을 주었다. 이름값, 간판 값을 해라.

41. 목사나 강도사는 1년에 두 명씩은 전도해야 그 직책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42.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된 자가 누구냐? 성자는 '구원의 근본자'이시며, 분체는 '시대 구원자'다. 고로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된 자라면, 반드시 생명을 구하게 된다.
43. '매일 신령하기, 매일 행하기'다.
44. 신령하면, 전도도 잘한다. '천사'도 돕고, '성자'도 돕기 때문이다.
45. 분체가 조건을 세우고 기도해 났으니, 행하기만 하면 된다.
46. 값을 지불해 났으니,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47. 성자도 분체도 조건을 다 세워 주면서 값을 지불해 주었으니, 너만 행하고 찾아가면 된다.
48. 너만 하면 된다.
49. <말>로 하면, 한 번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할 수 있다. <몸>으로 하면, 한 번에 몇 명만 인도할 수 있다. 고로 <말씀>을 전하여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해라.
50. 사랑도 <몸>으로 하면 '한 명'만 사랑할 수 있지만, <뇌, 정신, 말, 말씀>으로 하면 '지구 세상 모두 다' 사랑해 줄 수 있다.
51. 최고 차원 높고, 최고 강도 높은 사랑은 <뇌 사랑>이다. <정신적, 영적 사랑>이다.
52. <육>으로 끌어서 전도하니 겨우 '한두 명' 전도하게 된다. <말씀>을 외치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감동받고 행하게 되니, '많은 무리'가 전도된다.
53. <축구> 할 때 패스를 해 준 자도 골을 넣었다고 인정해 주고 잘한다고 인정해 준다. <전도>도 생명을 잘 가르치고 이끄는 자에게 패스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결한 자도 공적이 올라간다. 혼자 힘으로는 생명을 뺏긴다.
54. 자기가 전도해서 생명을 기르면, 자기 위치상 그 생명에게 큰 사명을 못 준다. 고로 큰 자에게 패스하여 더 크게 키우고, 사명도 더 크게 받고 뛰게 해라.
55. 큰 자에게 매어 놔야 그 말을 듣고 희망으로 환난도 이기게 된다.
56. 분체와 일체 된 자는 '생각'도 다르고, '희망'도 다르다. 고로 그 힘으로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하게 된다. 희망이 큰 만큼 힘이 생겨서 그 결심과 희망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57. <큰 자>를 의지하고 <성자와 분체>를 의지해야 '큰 힘'을 받고 육도 혼도 영도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사탄'도 이기게 된다.
58. 환난의 눈이 산같이 쌓여 있어도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면, 성자와 분체가 잡아 주니 봄이 와서 눈이 녹듯 환난이 사라지고,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59. 신령해야 자기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60. <신령한 자>는 '속'을 보고 좋아하고, <육적인 자>는 '겉'을 보고 좋아한다.

61. 신령하여 자기 혼체를 보고 깨닫고, 혼체로 자기 육신을 조종하며 관리해라.

62. 신령한 자는 지구 끝에 있는 자도 혼으로 보고 안다.

63. 신령한 자는 악평자들과 악인들의 행위를 알고, 그 혼과 영이 어디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어떤 형제로 변해 있는지 안다.

64. 세상에서 존경받고 섬김 받은 자라도 그 육신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면서 뼈를 깎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신령한 자는 이를 알고 있으나, 말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신령하지 못한 자는 이를 모르니, 그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 계속 그를 따른다. 영적 소경이다.

<2014년 4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리적인 현상도 건드려야 일어난다.

2. <마음>도 하나의 생리적 현상이다.

3. <마음>도 ‘목적’을 두고 건드려야 일어나 행하게 된다.

4. <몸>으로 잡으면 ‘한 명’ 잡고, <말>로 잡으면 ‘만 명’ 잡는다.

5. <몸>으로 사랑하면 ‘한두 명’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면 ‘온 세상 모두’를 사랑한다.

6. <몸>으로 가면 ‘몇 발자국’ 가지만, <마음>으로 가면 ‘천 리’를 간다.

7. <육>으로 사랑하면 ‘몸’이 느끼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면 ‘뇌’가 느끼고 ‘혼’까지 느낀다.

8. <마음>은 갈 수 있는 곳인데 <몸>은 갈 수 없다.

9. <마음 사랑, 뇌 사랑>은 드높아서 하늘 끝까지 닿는다.

10. (성자) <말씀>이 위력이다. 능력이다. <말>로 흥분시키면, 지구 세상 모두를 흥분시킨다.

11. (성자) <말>로 감동시켜라. <말>로 움직이게 해라. 내가 몸으로 하면, 너도 같이 빠져서 나오지 못한다.

12. (성자) 가령 술에 취해 수렁에 빠진 자를 <몸>으로 이끌어 내려면, 너도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말>을 하여 감동시켜 그가 나오게 해라. 그러면 너도 힘들지 않고 쉽다.

13. 말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14. <몸>으로 하면 ‘한 명’ 구원하고, <말과 마음>으로 하면 ‘수만 명’을 구원한다.

15. <말씀>을 외쳐 마음을 감동시켜 이끌어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된다. <몸>으로 이끌면, ‘한두 명’에 불과하다.

16. <몸>으로 하면 만 배 힘들지만, <마음>으로 하면 만 배 쉽다.

17. <육>으로 하면 만 배 힘이 들고, <마음과 말>로 하면 만 배 쉽다.

18. <몸>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자동차에 시동을 안 걸고 밧줄을 매고 끌고 가는 것’처럼 힘들고, <말>로 하여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는 것은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는 것’같이 쉽다.

19. <말>은 ‘실체’를 만든다.

20. <말>을 해 주어 그 말을 실천하면 ‘실체’가 된다.

21. 자신에게도 말하고 명령하면, 자기가 행하여 실체가 된다. 고로 말은 ‘실체’를 만든다는 것이다.

22. (성자) <말>이 ‘실체’가 되니, 말만 하여라.

23. <보는 것>도 ‘실체’가 된다.

24. 보면, 뇌가 작동되어 행해진다. 고로 볼 것만 보고, 박서는 안 될 것은 보지 말아라.

25. <듣는 것>도 ‘실체’가 된다.

26. 들으면, 뇌가 작동되어 행해진다. 고로 들을 것만 듣고, 나머지는 잘 분별하여 마음에서 지워 버리고 소각해야 된다.

27. (성자) 미래를 내다보고 화평하여라. 미래에는 잘되고 형통하니, 모두 기뻐하며 ‘화평의 잔치’를 하여라.

28. 사탄도 ‘이유와 조건’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힐문하지 못한다.

29. 하나님도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역사하신다.

<2014년 4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할 자’가 못 하는 상황이면 ‘대신 자’를 쓰는 것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인간이 삼위와 메시아를 믿게 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전능하신 성삼위와 메시아를 믿을 능력’이 없는 것이다.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능력’을 행하여 인간이 성삼위와 메시아를 믿게 하셨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고도 인간들이 안 믿는 것이다.

4.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 그러나 <축복받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못 했기 때문’이며, <축복받은 이유>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했기 때문’이다.

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행위대로 다 해 주셨다.

6. 인간이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불의’하게 대하지 않으셨다.

7. 인간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려고 해야 된다.

8. 전심으로 해야 끊임없이 하게 된다.

9. 매일 변하지 말고 해라.

10.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행하는 자는 ‘완전한 위치’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11. 부족하면 안 된다. 꼭 채워야 된다.
12. 부족하면,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라도 채워야 된다.
13.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놀면서도 부족한 것을 안 채우고,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낫선 영들과 함께 살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느냐.
14.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영계에서 부족한 것을 다 채웠다고 해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 간 자들의 ‘영’이 사는 영계로 갈 수는 없다. <영이 영원히 거할 장소와 위치>는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된다. <영의 운명>은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된다. <영의 운명>은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육신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고로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시대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라.
15. <휴거 기간>도 이때가 지나면 끝난다. <휴거 때>에 자기 영을 휴거시켜야만, 그 영이 성자 본체를 맞아 <천국 황금성>에 올라 ‘1000년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고로 <휴거 기간>에 ‘휴거’에 집중하여 전심으로 행하여 꼭 휴거되어라! 이제 1000년 성약역사에 딱 한 번뿐인 <휴거 때>가 끝나 가고 있다. <휴거 기간>이 끝나면, 성자도 떠나신다. 성자가 떠나시면, 지구상에 여러 환난이 닥친다. ‘휴거’된 자는 안전하다.
16. 어서 변화되고 부활되어 ‘마지막 최고의 부활’인 <휴거>를 이루어라. ‘마지막 최고의 부활’을 이룰 때가 바로 지금이다!
17. 그 시대 구원자를 따라가야 한다. 그가 영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가니, 그를 따라가야 ‘최고의 구원’을 이룬다.
18. 그 시대 구원자를 따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여, 그와 ‘같은 위치’에 가라.
19. ‘어느 시대, 누구’를 만났느냐가 그리도 중요하다.
20. (성자) 지구 세상이 생긴 이래, 종교 역사 이래 나 성자는 성약시대 내 본체를 통해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었고,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너희를 ‘가장 가까이’ 대했다.
21. (성자) 나 성자는 ‘신랑’으로서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나의 신부’로 대했다.
22. (성자) 지구 세상이 생긴 이래, 6000년 종교 역사 이래 ‘성약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최고 복 있는 자들이다.
23. (성자) 성약시대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도 ‘내 본체가 살아 있어 <영 휴거가 진행되는 이때> 태어난 자들’이 최고 복된 자들이다!
24. (성자) 최고 복된 시대에 태어났어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25. (성자) 1000년 성약역사의 기간 중에 ‘나 성자가 내가 보낸 본체를 통해 직접 역사하는 당세 때’가 최고의 때이며, 그중에서도 ‘휴거가 진행되는 휴거 때’가 최고의 때다.
26. (성자) 2000년 신약역사 기간 중에서 제일 좋았던 때는 ‘신약 때 내 본체, 예수’가 살아 있어 그와 같이 뜻을 펴 때였다. 그때 열두 사도들도 다 뽑았다.
27. (성자) 내가 보낸 자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육과 혼과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28. (성자) 내가 보낸 자가 인정하면, 나 성자도 인정한다.

29. (분체)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성자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30. (성자) ‘너의 행위’가 거짓 없이 너를 인도한다.

31. (성자)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시대 말씀을 듣고 ‘내가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나 성자’를 믿어라.

32. (성자) ‘내가 보낸 자’를 믿지 않고는 결단코 이 시대 구원을 못 받는다.

33. (성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보이지 않는 나 성자’를 믿겠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나 성자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겠느냐.

34. (분체) 어찌 보지도 않은 것을 말하며, 듣지도 않은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35. (성자) <나 성자>는 ‘보낸 자’를 통해 나타나고, <보낸 자>도 직접 못 나타날 때는 ‘그 몸으로 쓰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 내가 비사로 말하노니, 지금은 어떤 임금이 있는데 약속대로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모든 일을 ‘왕비’에게 맡기고 감과 같도다. ‘할 자’가 못 하는 상황이면 ‘대신 자’를 쓰는 것이다.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면... 당세는 물론, 역사를 두고 수백 년, 수천 년씩 흘러가도 모른다. 뿌린 씨가 싹이 날 때까지 주인은 기다린다.

2. 세상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난 자가 하늘 앞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그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됐다.

3. 스스로 깨닫고 사망권에서 살아났으니, 그는 얼마나 위대한 자냐. ‘땅의 신’이다.

4. 사실 하늘에서 가르쳐 준 것을 행하는 것도 어려워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스스로 깨닫고 알아 성자가 원하시고 찾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냐. 그가 아니, 성자는 그를 ‘자신의 육’으로, ‘땅의 구원자’로 삼고 <성약 구원역사>를 펴 나가시며 <휴거 역사>를 펴신다.

5. 성자는 땅의 아는 자에게 임하여 <휴거 역사>를 펴신다.

6. 온 세상은 예수님의 ‘육’이 살았는지 ‘영’이 살았는지 몰랐다. 그러니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육신’이 살아나 부활한 줄로 알고, 그 ‘육신’이 다시 온다고 믿고 있다. 그 육이 재림한다고 인식하는 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전능하신 성자가 오시겠느냐. ‘마음 문’이 닫혔으니 오실 수 없다.

7.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내가 다시 오리라.” 한 이는 <삼위일체 성자>이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부터 성자가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그러나 <성자와 분체>를 쪼개지 않으니 몰랐다. <성자와 분체>를 쪼개지 않으니, 못 쪼개니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여 다시 온다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2000년 동안 재림을 기다린 것이다.

8. 성자는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자’에게 은밀히 오셔서, 그를 통해 <시대의 뜻>도 이루시고, <땅의 육 휴거>도 이루시고, <하늘의 영 휴거>도 이루신다.

9. 먼저 땅에서 이 시대의 뜻과 재림과 휴거를 깨닫고 행한 ‘육신’이 휴거를 이루게 하시고, 그다음에 육의 행위를 통해 온전히 ‘신부의 영’으로 변화된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다.

10. 모르면... 당세는 물론, 역사를 두고 수백 년씩 흘러가도 모른다.

11. 하나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율법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육신’만 보고 “너는 우리와 같은 한 형제이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나?” 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했다.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 하신 말씀이다.
12.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성자’가 임한 것이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3. 임금의 대행이 암행어사다.
14. 본체의 대행이 분체다.
15. 삼위일체의 ‘성자’가 ‘예수님의 육’을 쓰고 행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자의 역할을 대행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들이 본 대로 예수님이 이단이나? 적그리스도나?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고, 적그리스도로 대한 자가 ‘전능자가 하시는 일을 방해한 하늘의 ‘역적’이 된 것이다.
16.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성자가 다시 오시어 이 시대의 가장 합당한 자를 쓰고,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와 일체 돼야 한다. 그는 ‘성자에게 쓰여지는 자’다. ‘성자 대행’이다. ‘성자의 육’이다. 성자는 그를 자신의 손, 발, 몸으로 삼고 <시대 구원의 일>을 하신다.
17. 인간이 스스로 깨닫기는 하지만, 어찌 전능자의 일을 하겠느냐. 전능하신 성자가 오셔서 그가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다.
18.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시니, 그가 행하는 줄로 알면 육에서 끝난다. 보낸 자가 하는 것을 통해 성자가 그 육을 쓰고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알게 하려 함이다. 보낸 자를 통해서 인간이 못 하는 것을 해야 그를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로 믿지 않겠느냐.
19. 보낸 자인데 만일 개인적인 일이나 인간적인 일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깨닫고 따르겠느냐.
20. 인간 스스로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자가 그 몸을 쓰고 행하셔야만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21. 예수님같이 사람이라도 성자가 쓰면, 구원자가 된다.
22. 시골 촌사람도 정치가가 쓰면, 정치가가 된다.
23. <구원자>는 ‘전도자’나 ‘복음의 사역자’와는 다르다. ‘성자의 육’으로 택함 받은 그 시대의 구원자다.
24. 임금이 자기 몸같이 쓰는 왕비나 아들은 ‘제2의 임금’이다. 이와 같이 하늘의 성자가 자기 몸같이 쓰는 자는 ‘구원자’다. 그는 땅에서 기다리는 자로서 위력 있는 일을 행한다.
25. 전능자 하나님은 ‘바람’을 사역자로 쓰기도 하신다. 이를 누가 부정하겠느냐.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와서 다 쓸고 갔는데 어찌 아니라고 하겠느냐.
2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는 ‘지진, 홍수, 태풍, 전염병, 각종 재앙’을 사역자로 쓰시고 지구를 흔들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보낸 자를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하신다. 이를 누가 부인하겠느냐. 이를 부인하는 자는 죄를 지은 자가 되어 사망권의 고통을 받게 된다.
27. 하나님은 한 민족을 초상집이 되게도 하시고, 가련하게 되게도 하셨다.

28. 하나님과 성자는 성경말씀대로 항상 보낸 자에게는 숨기지 않고, 먼저 보이고 행하셨다.
29.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불법을 행한 소경 같은 왕들을 치시고, 그 영혼이 흑암의 깊은 곳으로 끌려가게 하셨다. 지옥에 가서는 부인하지 못한다.
30. 모세가 지팡이로 땅을 치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31. 성자가 그 욕으로 쓰는 자의 손이 올라가니, 바닷물이 멈추고 민족들이 초개같이 날아갔다.
32.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수를 치시니, 물이 피가 되어서 먹지 못했다.
33. 성자가 그 욕을 통해 가축들을 치라 하시니, 가축들이 병이 들어 그것을 먹지 못했다.
34. 성자가 그 욕을 통해 전쟁으로 치니,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는 택한 민족의 딸들이 종의 족속들과 이성으로 타락한 연고다.
35.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고, 다시 사망에서 이끌어 내어 <생명의 역사>를 하셨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절식 기도 중 쓴 잠언

36. 사랑할 때 문단속이다.
37. '완벽한 삶'이다.
38. 성자는 '완벽한 자'라야 '완벽한 사랑'을 해 주신다.
39.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데, '성자의 욕'과 통하지 못하고 일체 되지 못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 <간판 신부>가 많다.
40. '마음과 생각과 혼'과 통하지 못하는 자는 그 '영'과도 통하지 못하듯이, '성자의 욕'과 통하지 못하는 자는 '성자'와 통하지 못한다.
41. <성자 본체>는 '성자의 욕'으로서 <성자 본체>에게로 가는 '마음·정신·생각·혼'의 작용을 한다.
42. 계시받는 자들은 특히 본체와 일체 돼야 한다.
43. 사명을 하는 자들 역시 본체와 일체 돼야 한다.
44. '주와 일체'다. 그래야 '성자와 일체' 된다.
45. 안 보이는 성자를 보려면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영계에서 보아라. <성자 본체>는 이 세상에서는 못 본다. <성자 본체>는 이 땅에서 '그 욕'을 통해서만 나타나신다.
46. 마치 '태아'가 태 속에서 완성되어 나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자기 엄마 얼굴>을 보듯이, 우리 '영'이 '휴거의 영'이 되어 천국으로 휴거됐을 때 비로소 <성자 본체>를 보게 된다.
47. '태아'가 '태 속'에 있는 단계같이 '우리 영'도 '지구 태 속'에 있을 때는 <성자 본체>를 못 본다. (지구에서 '자기 욕'이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성삼위를 사랑함으로 '자기 영'을 '휴거의 완성체'로 만들어 천국으로 휴거돼야 <성자 본체>를 보게 된다.)

48. <성자>는 지상에 나타나실 때 ‘그 육인 분체’를 쓰고 나타나신다. 성자는 그를 통해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구원 역사를 펴 나가신다.
49. <성자>는 ‘영체’다. 고로 지상에서 행하실 때는 ‘육체’를 쓰고 행하신다.
50. <성자>가 지상에서 행하실 때는 ‘그 육인 분체’를 통해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 육인 분체’를 통해 선포하신다.
51. <축복>도 ‘그 육’을 통해 주시고, <심판>도 ‘그 육’을 통해 하신다.
52. 이 땅에 성자가 다시 오셔서 <성약 1000년 역사>를 펼치기 위해 이 땅을 전쟁에서 해방시키셨다.
53. 이 땅에 성자가 다시 오시기 위해 세계의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끝나게 하셨다.
54. 사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가인 민족’을 일으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
5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계 역사>를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그러나 ‘인간의 선악 간의 행위’에 따라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인간의 행위가 악하면, 악한 대로 심판하며 통치하시고, 인간의 행위가 선하면, 선한 대로 축복을 주며 통치하신다.
56.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구원 섭리>를 펴 오셨다.
57. 개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면서 <구원>을 목적하고 역사해 오셨다.
58. 결국 ‘죄’를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사랑한 대가를 받기도 하신다.
59. 개인·가정·민족이 성삼위 앞에 죄를 짓더라도 성삼위는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여, 결국 회심하고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성삼위의 지체가 되어 삼위의 일을 함으로 은혜를 갚게 하시면서 <구원 역사>를 펴 오셨다.
60.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해 주신 것이 ‘구원의 기회’다.
61.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므로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아 주고 사랑해 주며 보호해 주셨다.
62.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와 악한 민족을 즉시 심판하지 않음은 그들까지 사랑하사 그들이 돌아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고로 정한 때까지 심판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나 ‘정한 날’까지가 기회다.
63.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으나 크나 인간에게 <한계>를 정하사,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다. ‘사랑’도 ‘미움’도 그러하다.
64. 만일 하나님이 작으나 크나 인간에게 <한계>를 정하지 않고 창조하셨다면, 모두 존재하지 못한다.
65. <한계>를 넘으면 ‘사탄 세계’다.
66. <절벽의 한계>를 넘어가면 떨어진다.
67. 전능자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재하신다.

68. ‘남녀의 사랑’도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인간이 한계 이상 쾌락을 느끼려고 마약을 먹고 각종 약물을 먹어도 역시 <인간의 한계>는 못 벗어난다.
69. 인간이 하나님이 정해 놓은 <한계>를 넘으면 ‘죽음과 멸망’이다.
70. 지나치게 <선>을 넘는 자는 <한계>를 넘어서 사는 자로서 존재가 흐트러진다.
71. 악인들은 <한계>를 넘어서 ‘사망’에서 산다.
72. ‘인간의 욕망’은 <한계>를 넘어 살아 보려 한다.
73. ‘육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못 채운다.
74. 창조주는 인간이 창조주와 함께할 때 만족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75. 술, 담배, 이성, 물질, 권력, 명예,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정해져 있다. 고로 이런 ‘육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
76. ‘육’으로 누리는 모든 것들은 갈증 날 때 물 먹듯, 배고플 때 음식 먹듯, 추울 때 따뜻하게 하듯, 이 정도로 <한계>가 정해져 있다.
77. 배고플 때 밥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뛰고 달리며 수고함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먹는 낙’만 가지고는 못 산다. ‘뛰고 달리고 수고하는 낙’으로 사는 것이다.
78. <사랑>도 <만사의 모든 것>도 ‘육적인 것들’은 뛰고 달리며 수고함으로 순간순간 채워지게 창조하셨다.
79. 그러나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는 다르게 창조하셨다.
80.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 보다 오래가게 창조하셨다. 영적인 기쁨, 영적인 환희, 영적인 영화, 영적인 권세, 영적인 사랑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영원하다.
81. <성자>는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역사를 펴신다. 그 육신과 일체 돼야 <한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영의 삶’을 살게 된다.
82. ‘육’을 통해 <영적 기쁨>을 누려야 된다.
- <2014년 4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절식 기도 중 쓴 잠언
83. <뇌의 생각>은 마치 ‘물’과 같다. 고로 ‘아래’로 흘러간다. ‘세상’으로 흘러간다. 고로 물을 뿜어 위로 올리듯이, 계속 노력하면서 생각을 뿜어 하늘 위로 올려야 된다.
84. <물>은 법칙에 따라 ‘아래’로 흐른다. 물과 같은 <생각>도 자꾸 ‘세상’으로 흘러간다. 노력해서 생각을 위로 뿜어 올리는 자만 ‘하늘 댐’을 만든다.
85. <생각의 물, 마음의 물>은 ‘세상 사랑, 물질, 명예’ 등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흘러간다. 고로 밤낮 생각을 위로 뿜어 올리며 수고하는 자가 승리한다.
86. 상대가 나의 생각과 일체 되니, 그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87. 나의 지체도 나와 일체 되니, 나와 같이 움직였다.

88. 안 보이는 것은 ‘느낌’으로 아는 것이다.

89. 보이지 않더라도 아까는 ‘빈 그릇’이었고, 지금은 ‘채워진 그릇’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90. <샘>에 물이 차면 넘치듯이, <마음>도 성자 생각, 주 생각이 차야 넘쳐흘러 주게 된다.

91. ‘넘치지 않는 사랑’은 주기도 어렵고, 받는 자도 참만하지 않다.

92. 거기에 집중해야 안 보여도 느끼게 되고, ‘마음의 눈’으로 보기도 한다.

93. 사탄은 숨어 있기에 ‘느낌’으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

94. 천사는 숨지 않아도 가려 났기에 못 본다. 천사가 옆에 있다는 것을 100% 믿고, 하고픈 대화를 해라.

95. 자기 마음과 일체 시키면, 자기 몸을 알듯 일체된 대로 느껴져 알게 된다.

96. 성자께 자기 마음을 일체 시켜서 성자를 느끼는 것이다. <본체>는 자기 육체로도 영체로도 못 본다. <성자>는 느껴서 보게 하시고, 상징적으로 육을 통해 보도록 ‘한계’를 정하셨다.

97. ‘자기 몸’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것이다.

98. ‘자기 영’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것이다.

99. ‘사람’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것이다.

100. ‘분체’를 통해 느끼고 배우는 것이다.

101.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육체나 혼체같이 형체는 없어도 ‘배우고 느끼고 아는 기능’을 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기능’을 한다. ‘감지기’와 같고, ‘감별기’와 같고, ‘온도계’와 같다. 고로 <마음과 생각>은 신경을 통해 육신에게 전달하여 알려 준다.

102. <신경>은 사람의 몸에 수백만 개로 뻗어 나가 있어, 그것으로 느낀다.

103. <뇌신경>이 ‘마음’이다. ‘영’과는 다르다. <뇌신경>이 죽으면 ‘마음과 생각’도 없어진다.

104. ‘뇌신경’을 없애고 ‘뇌’를 없애면 ‘마음’도 없어진다.

105.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 <뇌>로 <신경>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106. <뇌신경>이 <혼>과 연결되어 통하고, <영>도 <뇌신경>을 통해서 교통한다.

107. ‘신경이 느끼는 것’이 <마음>이다. <혼>은 ‘마음 단계’보다 ‘영 단계’에 속해 있어 ‘마음과 영의 매개 역할’을 한다.

108. ‘인간의 뇌신경에서 발생하는 마음과 생각과, 혼의 작용’으로 ‘영’이 탄생한다. ‘씨눈’에서 ‘쌀’이 나서 황금벌판 세계를 이루듯이, ‘마음과 생각과, 혼의 작용’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서 다음 세계를 이룬다. 하나님은 이같이 창조하

셨다.

109. 씨눈에서 새싹이 나듯이, ‘뇌의 마음과 생각’, ‘혼의 작용’으로 ‘영’이 탄생한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이치로 영이 탄생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110. ‘영’은 ‘육신의 마음, 생각, 혼의 작용, 행위’를 흡수하며 성장한다.

111. 땅에 거름한 대로 곡식이 거름을 빨아먹고 자라듯, ‘육의 마음과 행실’을 ‘영’이 다 받고 자란다.

112. ‘육의 마음과 행실’이 그렇게도 ‘영’에게 영향을 준다.

113. ‘마음·정신·생각’과 ‘혼’이 맑고 깨끗한 자는 ‘행실’도 맑고 깨끗하다. 그로 인해 ‘영’도 맑고 깨끗하다.

114. <과일>도 땅의 토질에 따라서 ‘그 맛’이 좌우되듯이, <영>도 ‘자기 마음과 생각의 질’에 따라서 ‘형체’가 좌우된다.

<2014년 4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절식 기도 중 쓴 잠언

115. 사람이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사랑 이야기>를 할 때는 ‘남녀의 생식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에게 생식기가 없어서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식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자들이 성(性)에 미친 자로 생각하고, 성(性)에 빠져 환각 속에 사는 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명자의 사명>도 ‘직설’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116. <사랑 이야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생각한다.

117. <성약 재림 시대>가 와서 성자가 사명자를 통해 <재림 말씀>을 줬으면,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격’이며 ‘한계선’이다. 한계를 넘어 ‘사랑의 지체’를 직설로 말하듯, ‘사명자의 사명’을 직설로 말하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여 깨우쳐 주기다.

118. <사명자의 사명>을 직설로 말하는 자는 <사랑 이야기>의 선을 넘어 ‘생식기 이야기’만 하는 자와 같아서 듣는 자가 메시아에 미쳐서 거기에 빠져 환각 속에 사는 자로 보고, 멀리하게 된다.

119. 여자를 보고 “얼굴이 아름답다. 몸이 아름답다.” 하며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예술적 표현’이다. 고로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하고 우러러본다. 사명자를 말할 때도 인격 짙, 몸짙, 열짙, 건장짙, 심정짙 등 그의 특징을 표현하여 말해 주고, 그가 성자와 함께 행한 일을 말해 주고, 그를 통해 성자가 구원역사와 휴거 역사를 편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120. 아름다운 여자나 멋진 남자를 두고 “생식기가 아름답다. 사랑이 느껴진다.” 하면, 그 사람은 성(性)에 미친 사람으로 본다. 무지한 자다. 바보다.

121. 사명자를 증거할 때도 그러하다. “삼위일체의 성자가 그에게 주신 말씀이 깊고 깊다. 감동된다. 위대하다. 기이하다. 따르고 싶다.” 하며 <복음>으로 증거해야지, <핵>인 ‘사명’을 직설로 말하면 안 된다. 성자의 명령이다. 그 사명은 자기만 깨닫고 꿀 먹은 벙어리가 돼야 한다. <사명자의 사명>만 직설로 말하여 거기에 정신이 빠진 환각자가 되지 말아라. 그런 자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남녀의 하체만 보고 다니는 자와 같다.

122. 그래서 <성자>는 지금까지 지구촌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보여 주지도 않으신다. ‘상징체’를 통해서만 나타나시지 ‘본체’는 안 나타나신다. <성자 본체가 육신으로 쓰는 사명자>도 ‘인간의 사랑의 핵심 지체’와 같아서 그 사명을 직설로 말하면 안 된다. 초림 때와 이 시대를 거울로 삼고, <복음>으로 증거하며 ‘그는 성자의 손발이다. 성자의 육이다. 충성자다.’하고 증거해라. 나머지는 본인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123. <성자 본체>를 본 자는 없다. 예수님 때는 ‘분체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셨고,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본체’를 통해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를 본 것이 <성자 본체>를 상징적으로 본 것이다.

124. <성자 본체>를 봤다고 하나, 상징체를 본 것이다.

125. 성자의 육으로 쓰는 자를 상징으로 본 것이다.

126. 여자의 핵심 지체만 에덴동산이 아니다. 몸 전체가 각종 아름다움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 여자의 핵심 지체를 확대하면, 여자다. 여자를 각종으로 보고 개성대로 증거하듯, <성자가 쓰는 사명자>도 ‘핵’을 보이지 말고, 그가 한 일을 각종 파트로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 본체가 한 일을 증거한 것이 되어 ‘성령 충만’ 하게 된다. 성령의 사역자 같이 증거다.

127.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도 ‘핵’은 안 보여 준다. 수영복으로 가린다. 이와 같이 <성자가 육으로 쓰는 사명자>도 ‘핵심 사명’은 말로 드러내지 말아라. 알아도 ‘그 사명’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행한 일’을 말하며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증거자의 사명>이다.

128. 어떤 여자가 자기 애인에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자기 애인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러 모여 들었다. ‘핵’을 말하지 않고, 각종 개성대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말해 주니,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 들었다. ‘사랑의 핵심 지체’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핵심 지체’를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 주겠느냐. 보여 주면, “미친년!” 하며 가 버리고, 제재하면서 “옷 입어!” 한다. 안 입으면 끌려간다. ‘사랑의 핵심 지체’가 없어서 안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성자 본체>를 증거할 때도 그러하다. <사명>은 아름답게, 권위 있게 전하고 증거해라.

129. 아름다운 여자도 ‘핵심 지체’는 안 보여 준다. 없어서가 아니다. ‘핵심 지체’가 없다면, 그것이 여자의 몸이겠느냐. <성자 본체>도 그러하다. ‘사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겠느냐. ‘사명’이 없다면, 구원할 수 있겠느냐.

130. <사랑의 핵심 지체>를 안 보여야 <전체>가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핵’에 호기심을 가지고 더 감동되고 더 신비하여 가까이한다. 그래서 성자는 시대마다 <당세>에는 ‘분체의 사명’을 숨기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달리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바위, 반석’이라고 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명을 알게 되니, 예수님은 “너에게 천국의 키를 준다. 그러나 꿀 먹은 벼어리가 되어라.” 했다.

131. ‘핵’은 싸고, 싸고, 또 싸는 것이다. 그 향기만 풍기는 것이다.

132. ‘핵’을 보게 되면, ‘몸’이 바로 빛을 잃는다.

133. ‘사랑의 핵’을 찔수록 ‘몸’은 더욱 빛난다.

134. ‘사랑의 핵’을 찌면, ‘각 지체’와 ‘몸 전체’도 더욱 신비하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고, 사랑과 아름다움이 더욱 발생한다. 그러다가 누가 ‘핵’을 말하면, <꺼진 등불>로 변한다. ‘핵’은 호기심이 발생케 하나, 직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핵’만이 ‘핵’을 주관한다. ‘핵’을 주는 여자는 <사랑의 등불이 꺼진 여자>다.

135. ‘핵’은 덮어 놓고, 핵으로 인해 빛나는 <시대 말씀>을 전해라! 시대 <재림 말씀, 휴거 말씀>이다. 그 말씀이 능력과 표적이다. 진리와 은혜다.

136. 누가 “너는 ‘사랑의 핵심 지체’가 없지?” 해도 절대 보여 주지 말고, 있다고 하지도 말아야 된다. ‘핵심 지체’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며 보여 달라고 하니, 옷을 다 벗고 보여 주는 자는 정신이 맛이 간 자다. 아무리 누가 “너희는 ‘핵’이 없지?” 해도 ‘핵’을 보여 주지도 말고 ‘핵’이 있다고 하지도 말고, “우리에게는 말씀뿐이다!” 해라.

137. “있다” 해도 모순이고, “없다” 해도 모순이다. 아름다운 지체들만 보여 주며 아름다움을 나타내듯, <사명자>를 나

타낼 때도 ‘그가 행한 일’과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핵으로 인한 환난’이 없다.

138. ‘핵’을 보여 주는 자는 누드로 거리를 다니는 여자이며 남자다. 그러면 “미친 사람!” 하며 손가락질 당하고 잡혀 간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잘생긴 사람이 안타깝게 미쳤네.” 한다. 그러니 ‘핵’은 보여 주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라. ‘핵’은 <사명>이다. ‘핵’은 <핵무기> 같아서 숨겨놔야 된다. 그가 한 일’과 ‘복음’으로 그를 증거해라.

<2014년 4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만물>을 보고, ‘인간’을 측량해라.
2. 하나님은 <만물의 이치>를 보여 주시고, ‘사람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해 주신다.
3. (성자) 신과 같이 살아라.
4. (성자) 신처럼 살아라.
5. (성자) 호랑이야~ 토끼가 귀엽다고 거기에 빠져 오래 놀지 말아라.
6. 한 나라의 왕은 그리 귀하지 않다. <한 세기>에 ‘스무 명’이나 나온다.
7. 선지자는 <400년>만에 ‘한 명’ 나오고, 혹은 <한 세기>나 <반 세기>에 ‘한 명’ 나온다. 메시아는 <수천 년>만에 ‘한 명’ 나온다. 그리고 지구 세상에 잠깐 있다가 간다. 고로 메시아를 알고, 실제로 본 자는 지구촌에서 귀하고도 귀한 자다.
8. <별>은 많아도 <태양>은 하나다.
9. <별>은 많아도 <달>은 하나다.
10. 인생 100년 짧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러면 200년 산 만큼 산다.
11. 인생길 가다가 구경할 것 다 구경하다 보면, 갈 길 못 간다.
12. 가는 길에 여기저기 다 둘러봐 봤자, 거의 다 비슷하다.
13. <지혜>는 ‘하나님’이시다.
14. <지혜의 근본자>는 ‘삼위일체’이시다.
15. <삼위일체와의 몇 마디 대화>가 ‘진수성찬’이다.
16. 보채는 아기와 대화하다 보면, 부모가 할 일 못 한다.
17. 이것저것 스쳐 보내고, ‘뜻’을 펴고 ‘할 일’을 해야 역사에 궁궐같이 남아 있다.
18.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재촉하는 자는 해가 서산에 기울었다고 생각하며 행한다.
19. 다른 곳은 아름다워도 거기서 거기다. 하늘이 보낸 자가 태어난 곳이 큰 곳이다.
20. 조금만 더 지혜가 있으면, ‘극’을 면한다.

21. '선에 오른 1등'에게만 준다.
22. '말씀을 지킨 자'에게만 준다.
23. 1등은 <영의 차원>, 2등은 <혼의 차원>, 3등은 <육의 차원>이다.
24. 1등만 '최선을 다한 자'다.
25. 1등만 <천국>에 간다. 2등은 <낙원>에 가고, 3등은 <선영계>에 간다.
26. 개인, 가정, 단체, 교회, 교단, 민족, 세계 모두 '개인'으로 보고, 경제나 모든 삶을 계산해라.
27. 불가능해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하면 성공한다. 못 한 것 일부는 이미 한 자가 관리하며 돕게 하면 된다.
28. <희망>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29. '이 시대 최고의 희망'은 <휴거>이니, '휴거의 희망'으로 이 시대 환난과 자기 어려움을 모두 다 꺾고 이기는 것이다.
30. 고로 <휴거>에 대해 확실히 알고 <휴거의 가치>를 알아야 '휴거의 희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꺾게 된다'.
31. 아는 만큼 '힘'이고 '능력'이고 '가치'다.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도 '고욤나무의 근성'은 못 버린다.
2. 성자와 일체 돼도 '육신의 근성'은 좋게, 혹은 나쁘게 있다.
3. 육신이 존재하는 한, '육신의 근성'은 존재한다.
4. <온전히 변화된 영>은 '신성'을 갖게 되어 '육의 근성'을 완전히 버린다.
5. '인성'으로 사는 자는 그 <영>도 '육신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집도 세고, 뇌가 굳어서 자기 주관으로 산다.
6. <근성>이란, '육에 속한 뇌에 있는 뿌리, 곧 마음과 생각'이다.
7.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도 <뿌리>는 고욤나무다. 고로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도 '고욤나무 근성'은 남아 있다.
8. 고욤나무는 그 근성대로 <뿌리>가 무성하다. 고로 접붙인 참감나무도 무성한 뿌리의 영향을 받고 영양분을 잘 빨아 올려 참감나무도 잘 자라서 무성하게 된다.
9. '근성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근성이 나쁜 사람'이 있다.
10. <고욤나무 뿌리>와 <참감나무 뿌리>는 둘 다 '근성'이기 때문에 <고욤나무 뿌리>에 <참감나무 뿌리>를 접붙인다고 해서 '참감'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욤나무 뿌리>와 <참감나무 가지>는 천생연분이라 접붙이면 '참감'이 열린다.

11. 사람에게도 저마다 <근성>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근성>끼리 부딪치면 안 맞다.
12. <근성>끼리는 ‘상극’이라서 안 맞아서 못 산다. 고로 <근성>끼리 부딪치지 말아라.
13. 사람은 <근성>끼리 부딪히면 ‘극’이 된다. 고로 싸움, 다툼, 혈기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전쟁까지 일어난다.
14. 그리 좋아하고 사랑하여 결혼까지 했으면서 왜 싸우고 이혼하겠느냐. <근성>끼리 부딪쳐서 그러한 것이다.
15. 이쪽에서 <뿌리>가 솟을 때 저쪽에서 <나무>로 대하면 ‘다툼’이 없다. ‘미움’도 없다. ‘극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16. 곧 한쪽에서 <근성>으로 대할 때, 상대는 <신성>으로 대하면 ‘다툼, 미움, 싸움, 극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17. 사람의 지체 중에서 <근성>이 무엇인지 표현하면 ‘뼈’다. 뼈끼리 부딪치면 충격을 받고 깨지고 부러진다. 그러나 ‘뼈’와 ‘살’이 부딪치면 오히려 시원하다. ‘뼈’와 ‘살’은 상대성이기 때문이다.
18. <뿌리>와 <뿌리>가 만나면, ‘극’이 되어 살지 못한다. 항상 <뿌리>와 <나무>다. 그러면 ‘상응’하니 살 수 있다. <뿌리>끼리도 ‘상극’이고 <나무>끼리도 ‘상극’이다. <뿌리>와 <나무>가 ‘상대성 일체’다. <끝>
19. ‘주’는 <나무>요, ‘신부들’은 <뿌리>다. 뿌리에 나무를 접붙이면, 일체 되어 산다.
20. 같은 성질끼리는 ‘극’이 되기에 접붙이지 않는다.
21. 천사들과 천인들은 ‘영의 세계에서 태어난 영체’로서 <하늘에 속한 나무>와 같고, 땅에서 육신 쓰고 태어나 육신을 통해 성장된 인간의 영들은 <땅에 속한 뿌리>와 같다. 삼위일체도 <하늘에 속한 나무>와 같기에 ‘천사들’을 통해서는 <상대성 사랑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 고로 하나님은 <하늘의 상대성 세계>인 ‘지구’를 창조하시고 <삼위의 상대성 대상>인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여 그 육을 통해 그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더 이상적인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한 남자 앞에 <한 여자>와 같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땅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부터 <사랑의 뜻>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천국의 체제>도 ‘사랑의 체제’로 바뀌었다.
23. 한 가정에 부모와 아들딸이 같이 살다가 아들딸이 결혼하면, 그때부터 체제가 그 전과는 달라져 <사랑의 세계>로 뒤바뀌는 격과 같다. 땅에 인간을 창조하여 삼위 앞에 ‘사랑의 대상체’가 생기고, 그들로 인해 <창조 목적>을 이루니, <천국의 체제>가 그 전과는 달라져 ‘사랑의 체제’로 바뀌었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도 바뀌었다.
24. <본질, 본능>은 ‘자기의 근본 바탕’이다.
25.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본성과 부딪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느냐고 성자에게 물으며, 한마디로 말해 달라고 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비유로 말하면, 인간과 삼위일체가 부딪치면 마치 사랑하는 자와의 첫날밤과 같다.” 하셨다.
26.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육신은 지능이 낮아서 모르니, 성자에게 말해 달라고 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네 영은 안다.” 하셨다.

1. 성장하면 만들어진다.
2. 만들지 않았을 때는 형편도 없고 볼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볼 것이 없다.
3. <성장하는 기간>에 ‘목적’대로 만들어야 된다.
4. 물건도 <만드는 기간>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되듯, 사람도 <성장하는 기간>에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다.
5.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예쁘기만 하지,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신비함이 없다. 커야 된다. ‘신앙’도 자기를 성장시키고 만들어야 된다.
6. 월명동도 만들기 전에는 세상 어떤 골짜기나 어떤 장소보다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만들어 놓으니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연이 얹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골짜기가 되었다.
7. 자기도 만들기 전에는 별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자기를 만들기에 따라 한도 끝도 없이 변화되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8. ‘육’도 만들고 ‘혼’도 만들고 ‘영’도 만들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상대체>까지 된다.
9. ‘육’은 만들어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물질세계의 존재다. 고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혼과 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로까지 만들 수 있다.
10. 자기를 만든 대로 얻고, 누리고, 영광스럽게 된다. * 자기를 만들 때, 필수 요소가 있다.
11.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듣고 행함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12. (둘째) 자기를 만들 때는 자기 자신,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시대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
13. (셋째) 자기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14. 월명동은 하나님의 구상으로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와 함께 행하며 만들었다.
15.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고 창조해 놓으셨어도 인간이 한계를 넘으면 넘어간다.
16. 하나님은 <혈통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사랑의 한계선>을 넘어가는 자는 넘어가서 혈통끼리 사랑하게 된다.
17. 그러나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놓으셨기에 혈통끼리는 사랑해도 유전자 결합이 안 맞고, 모든 것이 안 맞아서 비원리적인 것이 되어 고통이 된다. 그래서 결국 같이 못 산다.
18.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인간이 창조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계>를 정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계선>을 넘어가서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한계를 넘어 행한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 행함으로 인해 결국 육도 혼도 영도 사망길로 가고, 비원리적인 영이 되어 사망에 속하게 된다.
19. 하나님의 법은 <한계선>이 있다. 그 한계선을 넘어가서 죄를 짓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결국 ‘고통’이다. 한계선

을 넘어감으로 인해 찢값을 받으니,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고통의 세계다.

20.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서 행하는 자들은 <한계선>을 넘어서 사는 자들인 고로 ‘육’도 비원리적 고통의 세계로 가서 사망의 고통을 받고, ‘영’도 지옥의 세계로 가게 된다.

21. 전능자의 법을 떠나서 살아도 세상의 것을 먹고 입고 누리며 존재는 한다. 세상 향락과 기쁨도 누리며 산다. 그러나 자기가 <한계선>을 넘어서 살았기에 결국 ‘육’은 인생 끝나기도 전에 전능자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육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이 육신이 행한 대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다.

22.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산다.

23. 하나님은 시대에 보낸 구원자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자들에게는 근본을 말씀하지 않으신다. 고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산다. 구원자를 만나야 알 수 있다.

24. 모르고 산 것은 그로 인해 영원한 고통을 받을 때에야 그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런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25. 고로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서 알고 살아야 된다.

26.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전능자와 구원자를 믿지 않고 살다가 그 영이 지옥에 갔어도, 하나님은 “너는 왜 나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구원자를 믿지 않고 살다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하고, 말해 주지 않으신다. 영원히 말해 주지 않으신다.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도 지옥에서는 못 나온다. 이미 세상에서 육신이 살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여 깨우쳐 주고, ‘양심’을 통해 깨우쳐 주고, ‘만물’을 통해 깨우쳐 주셨다. 그러나 본인이 믿지 않은 것이다. 혹은 자기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자기를 구원할 줄 알고 살았기에 전능자와 구원자를 모르고 산 것이다. 전능자와 구원자는 구원하려 했으나 본인이 믿기를 싫어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해 주셨는데 자기가 안 믿었으니,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다 받는 것이다.

2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메시아를 믿더라도 자기가 힘들지만 고칠 것을 고치고, 고생하면서 끝까지 의를 행한 자라야 구원받고, 그 행위대로 천국이나 낙원에 간다.

28. 구약 : 신약 : 성약은 각각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

29. 사람도 일꾼은 일꾼으로 대하고, 형제는 형제로 대하고, 애인은 한 몸같이 대한다.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인간을 달리 대해 오셨고, <구약>은 ‘종, 일꾼’같이 대하셨고, <신약>은 ‘자녀’같이 대하셨고, <성약>은 ‘애인, 신부’같이 대하시며 정한 뜻을 펴신다.

30. 시대마다 ‘보낸 자’를 그리 정하고 행하셨다. 땅에서 조건을 세우는 대로 그 시대를 대하셨다.

31. <모세>는 ‘종 입장의 조건’을 세웠다. 고로 하나님은 모세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종 입장’으로 대하며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아들 입장의 조건’을 세웠다. 고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자녀 입장’으로 대하며 구원하셨다. <이 시대 사명자>는 ‘신부 입장의 조건’을 세웠다. 고로 하나님은 그를 따라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신부 입장’으로 대하고 구원하셨다. 성자는 ‘신랑’으로 재림하여 ‘신부’들을 휴거시켜 <혼인 잔치>를 하신다.

32. 한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도 그러하다. 여자가 일꾼으로서 남자를 주인같이 대하면, 남자도 여자를 일꾼으로 대해 준다. 여자가 남자를 형제같이 대하면, 남자도 여자를 형제같이 대해 준다. 여자가 남자를 애인같이 대하면, 남자도 여자를 애인같이 보고 대해 준다.

33.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과거 선조 때 못 세운 ‘믿음의 조건’을 세우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이 되었다.

34. 누구든지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운 자를 따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그와 같은 입장이 된다.

35. <구원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 ‘자녀의 뜻’을 펴냈고, <성약 때>는 보낸 자를 통해 ‘신부 역사’를 시작하여 ‘사랑의 뜻’을 펴 나가 ‘최종 창조 목적, 사랑의 목적’을 이루신다.

36.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기르는 목적은 ‘종’으로 쓰기 위함도 아니고, ‘형제’같이 지내려 함도 아니다. 오직 여자를 ‘신부’로 맞아 평생 사랑하면서 살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환경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여자도 키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육을 통해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구약 때>는 ‘종’으로 대하다가, <신약 때>는 차원을 높여 ‘자녀’로 대하고, 마지막으로 <성약 때>는 땅에서 사랑의 조건을 세운 대로 ‘신부’로 대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휴거 역사>를 펴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2014년 4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이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깨달아라!

2. 살았으니, 행하는 대로 ‘수만 가지’를 얻게 된다. 죽으면,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고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3. <육신>이 죽으면,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여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이 <영>이 죽어 있으면,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여 ‘한 가지’도 얻지 못한다.

4. ‘<영>이 살아 있는 자’는 행하는 대로 얻는다.

5. ‘<영>이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깨달아라!

6.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 있는 수많은 자들이 행했어도 한 시대가 다 가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7. 만일 수만 명이 죽었다 하자. 수백 년이 가도 ‘한 가지 일’도 못 한다. 그러나 그중의 한 명이 살았다 하자. 그러면 할 일을 하게 된다.

8. 세상 사람들의 영이 신앙적으로 다 죽었으면, 1000년이 가도 ‘한 가지 일’도 못 한다. 그러나 그중의 ‘한 명’이 살아 나면, 그제야 할 일을 하게 된다.

9.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육신’은 살았으나 ‘영’이 죽었다. 그로 인해 구약 4000년 동안 그 후손들도 ‘영’이 죽어 있었기에 하나님은 4000년 동안 <본래 원하시던 뜻>을 펴지 못하셨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을 통해 <구약급 뜻>을 펴셨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이 살았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본래 원하신 생명의 역사>를 펴려 하셨다. 그러나 ‘영’이 죽었기에 ‘육’이 살았어도 <생명의 역사>를 펴지 못했다.

10.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신약역사가 되어서야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살았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중심으로 구약 때 이루려던 <생명의 역사>를 펴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후손들을 데리고 <신약 생명의 역사>를 펴 나가셨다.

11. ‘메시아 예수님의 영’이 살았기에 하나님은 신약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육과 혼과 영을 <아들급>으로 구원하는 구원역사를 펴 오셨다.

12.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의 근본 역사’인 <신부급 역사>를 펴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급 구원>은 이루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죽음으로 ‘영’이 <신부>로서는 죽어 있었다. <신부>로서의 ‘영’이 죽어 잠자는 가운데, 성자가 재림하시고 하늘 앞에 땅에서 <신부의 조건>을 세운 자가

‘신부로서 첫 번째로 산 영’이 되어 성자를 맞았다. 그로 인해 <성약 신부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그를 믿고 그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는 ‘육’도 <신부>로 살아나고, ‘영’도 <신부>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13. ‘산 자’와 ‘죽은 자’는 딴 세상이다.

14. 하나님은 ‘영이 산 자’의 사랑의 하나님이다.

15. <주>는 ‘영이 산 자’의 사랑의 주시다.

16. <땅속의 보화>도 캐내지 않으면, ‘죽은 보화’다.

17. <자기 영>도 살리지 않으면, ‘죽은 영’이다.

18. ‘죽은 영’을 그대로 두면, 육신이 죽기 전이라도 사망권에서 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대로 사망 지옥 쪽에 속해 지옥의 각종 고통을 받으며 존재한다.

19. ‘영이 죽은 자’는 육신이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 <육>도 사망권에서 살고, 그 <영>도 죽어 있다.

20. ‘영이 산 자’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성자와 그 분체를 믿고, 그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자다.

21. 지구 세상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어도, 성경에 예언하고 말씀한 대로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새 시대 신부급>으로 살아난 영’이 있어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

22. 한 개인도 뇌에서 발생하는 <마음과 생각>이 죽어 있으면, ‘할 일’을 못 한다. <생각>이 살아날 때까지 ‘할 일’을 못 한다. <생각>이 살아나야 그때부터 ‘할 일’을 한다.

23. ‘육’이 그 시대 말씀을 듣고, 그 시대 구원자를 믿고, 그를 통해 삼위일체를 사랑해야 ‘영’이 살아난다. 그제야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과 휴거의 역사>를 펼 수 있다.

<2014년 4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희망을 유유히 이루어라.

2. 조급하게 희망을 이루면 <과정적 희망>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 <목적의 희망>도 제대로 못 이룬다.

3. 희망을 이루려고 조급하게 하다 보면,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마음만 더 졸이게 된다.

4. <사람>도 급하게 만들지 말아라.

5. <환경>도 빨리 희망을 이루려고 급히 만들지 말아라.

6. 희망을 빨리 보려다가 오히려 애간장만 더 타게 된다.

7.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생각해 보고, 혼으로 내다보아라. 그러면 희망이 보인다. 그리고 성자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희망을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

8. 희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열심히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9. 궁금하면, 자꾸 걸어가 보아라. 그러면 환경이 보이고, 형태가 보인다. 수고하는 대로 희망이 보인다.
10. 네 앞에 <희망>이 있다. 그러니 수고하고 행해라. 마치 흙에 묻혀 있는 것들을 파내어 발굴하듯이, 파 들어가면서 수고하면 행하는 만큼 '희망의 형태'를 보게 된다.
11. <때>를 따라 '희망'을 이루어라.
12. 지금 <휴거 때>를 따라 '휴거의 희망'을 이루어라.
13. 희망은 느리게도 이루지 말고, 조금하게도 이루지 말아라. <때>를 따라 시간이 가듯 행하며 희망을 이루어라.
14. 조금하면 애만 탄다. 마치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니 맛을 모르는 것과 같아서 맛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
15. 시간의 속도를 따라 행해야 희망이 이루어진다. 느려도 문제가 생기고, 조금해도 문제가 생긴다.
16. '잘되느냐, 안 되느냐.',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는 모두 '조금 더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막바지 끝에 가서 좌우된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더 해라!
17. 아직 '끝'이 안 보이면, 더 해라.
18. 끝장내라! 끝에 가서야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이 보인다. 고로 희망이다.
19. 끝에 가야 알게 된다. 이를 알면, 과정 가운데서는 '끝'을 모르니까 더욱 희망을 걸고 몸부림치게 된다.
20. 궁금하니, 희망이다.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21. 끝에 가야 가던 길의 '끝'을 만나고, 또 '새로운 시작'이 보인다.
22. 끝에 가면, 또 '새 희망'이다.
23. 끝까지 가는 자만 '다음 희망'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또 희망을 걸고 '희망의 길'을 가게 된다.
24. <1차 휴거 100선>까지 가는 자만 '새 희망'인 <2차 휴거 200선>을 발견하고, <휴거 200선>까지 가는 자만 '새 희망'인 <3차 300선 휴거>를 발견한다.
25. 과정 중에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니, 희망이 없다. 현실도 보되, <미래>를 보아라. 그러면 현실보다 훨씬 이상적이다.
26. 만드는 과정 중에 '미완성된 것'을 보면, 실망하게 된다. 거기서 더 하면 매일 달라지고 완성되어 간다. <미래>를 보고 계산하면 실망이 없다.
27. 땅에 투자한 사람도 <현실>만 보니 낙심한다.
28. 월명동 생가 뒷동산을 보아라. 사 놓고 <현실>에는 별것 없었다. 그때의 미래인 현재를 보아라. 조경을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산 값이 높아졌겠느냐. 고로 <미래>를 보고 희망으로 살라는 것이다.

29. 생명을 기르는 자도 <현실>만 보면, 실망한다. <미래>를 보고 가르치고 투자해라. 한 생명이 10명을 만들게 되고, 귀히 쓰임 받는 자가 된다.

30. 휴거를 이룰 자들도 <미래의 휴거 300선>을 향해 ‘희망’을 가지고 뛰고 달려라.

31.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대가’로 <말씀>을 준다. 말씀 중에 <물질 축복>이 나가고, <사랑 축복>이 나가고, <영원한 축복>이 나간다. 고로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

<2014년 4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디서나 ‘아픈 것’이 지옥이다.

2. 온몸의 100분의 1인 ‘이 하나’ 썩시고 아픈데, ‘온몸 전체’가 아프다.

3. 이와 같이 ‘죄 하나’로 ‘영혼’까지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한다. 고로 회개하고 깨끗이 해야 된다.

4. 100% 온전해야 <천국>이다.

5. ‘한 가지 기쁨’으로 인해 ‘온몸 전체’에 기쁨이 오게 된다.

6. <육신의 병으로 인한 고통>도 지옥의 고통이고, <마음이 괴로운 고통>도 지옥의 고통이다. 그러니 치료해 주고 기도해 주어 모두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라.

7. <뇌>가 아픈 것과 <마음과 생각>이 아픈 것은 다르다.

8. <몸>이 아픈 것과 <마음과 생각>이 아픈 것은 다르다.

9. <몸>이 아픈 것과 <마음>이 아픈 것이 다르듯, <육>이 아픈 것과 <혼과 영>이 아픈 것은 다르다.

10. <마음>이 아프면 <몸>이 그 고통을 받고 느끼듯, <혼과 영>이 아프면 <육>이 그 고통을 받고 느낀다.

11.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고가 나서 다쳐서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 마음 아픈 일을 당해서 아프기도 한다. / 이와 같이 <혼과 영>도 자기가 처한 세계에서 살면서 혼체와 영체 자체로 받는 고통이 있고, 혼체와 영체의 마음이 아파서 받는 고통이 있다.

12. 육신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돼서 받는 고통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고, 악인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다. / 이와 같이 <혼과 영>도 원하는 것이 안 되어서 받는 고통이 있고, 다른 혼체나 영체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고, 사탄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있다.

13. <혼체>와 <영체>에게는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받은 고통’이 많다. 고로 <육신>이 꼭꼭 기도해 줘야 된다.

14. 사탄은 ‘행위’를 따라 역사하고, ‘행위’를 따라 꾀고, ‘행위’를 따라 끌고 간다.

15. 사탄에게 생명을 뺏기지 않고 데리고 있을지라도, 자체적으로 썩으면 헛일이다.

16. 가령, 시장에서 사 온 ‘과일 네 개’가 있다 하자. 그런데 그중의 ‘두 개’는 누가 훔쳐 가서 ‘두 개’가 남았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속이 썩어 간다면, 도둑질을 당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더라도 <썩는 세상>에 뺏긴 것과 같다.

17.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섭리사 안에 있는 생명이라도 스스로 썩는 행위를 하여 썩고 있으면, 그 사람은 <썩는 세

- 상>에 뺏긴 자다. 자기가 깨끗이 회개하여 100% 복직하지 못하면, 섭리사 안에 있어도 <사탄>에게 뺏긴 것과 같다.
18.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휴거될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19. <육신>이 살아 있어도 주의 품을 떠나면, 그 <혼과 영>이 죽어 있다.
20. <육신>이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그 <혼과 영>이 죽어 있다.
21. 자기가 <생명권> 안에 있을지라도 ‘썩는 행실’을 하는 만큼 자기를 <사망권>에 뺏긴 것이다.
22. 주를 속이는 자는 그 영혼이 사망권에 죽어 있다.
23.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드러내어 밝히고, 행한 만큼 형벌을 받게 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회개하면 살게 되니, <회개>만큼 좋은 것이 또 있으랴.
24.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탄 주관권>, <죄의 주관권>에서 나와라.
25. <사탄 세계>에 가서 사탄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주관권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와라. 그러면 사탄이 오지 못하고,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26. <주>가 사랑하는 자라도 ‘불법’을 행하면, 용납이 안 된다. 이는 그 위에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있기 때문이다.
27.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로 휴거되는 혜택’을 준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로 휴거되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
28. <휴거>는 성자의 육이 살아서 당세에 복음을 전하는 기간 중에 ‘딱 한 번’ 있다. <휴거>는 ‘휴거 기간 중에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킨 자’에게만 해당된다.
29. 만사의 모든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있어도 ‘해가 뜨는 곳’은 <동쪽 한 군데>다.
30.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도 성자가 재림하시면, ‘이를 알고 맞는 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 중의 한 명>이다. 처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
31. 깨달아야 된다. 두 가지로 깨닫게 된다. 첫째, ‘기도함으로 성자가 깨우쳐 주어 깨닫는 것’둘째, ‘자기가 계산해 보고 그 실상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32. <영의 사랑>이라야 육신이 죽어도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
33. <육적 사랑>이라면, 육신이 살았을 때만 하고 끝나니 허무하다.
34. <영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 ‘육도 사랑’이다.
35. 처음에는 ‘훈련’이고, 다음에는 ‘태도’다.
36.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라. 그래야 도적같이 그 날이 닥쳐도 준비한 대로 대처할 수 있다.
37.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죽는다.

<2014년 4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여건>은 만드는 대로 돌아간다.
2.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여건'이 놓여 있다. 하나는 <좋은 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 여건>이다. 요령, 지혜, 기술로 <여건>을 잘 만들고 잘 활용해야 된다.
3. <물건>도 <음식>도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에 달렸듯이, <자기 삶>도 자기가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에 달렸다.
4. <시간>은 '일의 애인'을 만들 수 있는 자료다.
5. <시간>은 그냥 두면 떠나간다. 여건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6.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만들 자료'다. 만들기에 달렸다.
7. <모든 삶의 여건>은 엮어서 만들기에 달렸다.
8. 철과 나무와 돌을 가지고 만들기에 따라 목적인 것이 만들어지듯이, <생활의 삶>도 만들기에 따라 그 삶이 좌우된다.
9. <모든 일>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다. 고로 일을 하는 만큼 '일의 여인'과 사랑한 것이 된다.
10. 혼의 세계에서 성자가 한 계시를 보여 주셨다.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모두 다 남자들이 따라다녔다. 내가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 가로채어 자기 말뼉으로 만들었다. 처음 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낯익은 여자들도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떤 한 여자에게 가서 내가 하고픈 말을 적극적으로 하니, 그 여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와 나를 방해하던 남자가 멀리 사라졌다. 결국 '사랑 이야기'까지 깊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까 나를 방해하던 남자가 노크하며 문을 두드렸다. 끝까지 문을 안 따 주었다. 그 여자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 모두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꼭 남자가 따라다니든지, 여자가 따라다니며 방해했다. 그러니 여자들이 그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말을 듣고, 상대를 안 따라갔다. 이 꿈을 꾸고 성자에게 물으며 해석해 달라고 간구했다. (중요) 성자는 말씀해 주시기를 "<여자들>은 모두 '내가 해야 될 각종 일들'이다. <여자들을 따라다니던 남자들>은 '사탄'이다. 네가 일을 할 때마다 사탄이 네 육과 마음을 방해한다. <일>은 '한 여인'과 같다. 네가 적극적으로 말하니 여자들이 네 말을 잘 듣지 않았나. 또 남자들은 멀리 사라졌다. 네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너를 방해하는 사탄이 떠나고, 네가 일의 주인이 되어 일을 사랑하며 행함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일>을 '한 여인'으로 보아라. 일을 하면, '자기 욕성'이 방해하고, '타인'이 방해하고, '사탄'이 방해하고, '인 사탄'이 방해한다. 그러니 일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여 그 일을 완성해라. 그러면 한 여자를 사랑하여 사랑에 성공한 것과 같다. 기도하는 일, 잠언 쓰는 일, 말씀 쓰는 일, 전도하는 일, 관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행정의 일 등 수십 가지의 일들을 말한다. <일>을 '한 여인', 곧 '나 성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여라." (하셨습니다.)
11. <휴거>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행해라. 휴거를 위해 행하는 만큼 '휴거의 여인'과 사랑한 것이 된다. 그리고 휴거를 방해하는 사탄이 사라지고, 잡념이 사라진다. 그리함으로 <휴거>된다.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눈으로 보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눈으로 못 보는데 생각하는 것만도 못하다.
2. 생각하는 데까지만 안다.

3. <구역사>가 볼 때, <새 역사>는 와 보지 않은 길이라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 “구시대의 사람들은 왜 <새 시대>를 모르냐?” 하지 말아라.
4. ‘구역인들’은 새 시대 <신약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와 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것이다.
5. ‘신약인들’도 새 시대 <성약역사>에 와 보지 못했기에 새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 “왜 모르냐?” 하지 말아라.
6.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왜 모르냐?” 하지 말아라. 커야 안다.
7. 아는 만큼 위에 있다.
8. 아는 자가 말 안 하면 모른다.
9. 아는 자는 인간으로서 신이다.
10.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모르는 주관권의 생각’을 하고, ‘모르는 주관권의 삶’을 산다.
11. 모르면, <휴거 때>가 왔어도 휴거되지 못한다.
12.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가 왔다고 해서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로 변화되지 않는다.
13. <휴거>도 그러하다. <휴거 때>가 왔다고 해서 모두 다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메시아를 맞고, 시대 말씀을 배우고, 휴거되기 위해 자기를 만들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만 휴거된다.
14. 세상만사 모든 것이 ‘행하는 자’만 얻고, 이룬다.
15. ‘행할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는 자’만 얻게 된다.
16. 아는 것이 주권이다.
17. 모르면, 할 수가 없다.
18. 아는 자가 주인이다.
19. 모르는 자는 몸에 달고 다녀도 모른다.
20. ‘뇌’에 다 들어 있다.
21. ‘뇌’에서 발생되는 <생각>은 보화다.
22. 먼저 ‘뇌에서 생각’으로 찾고, 그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데’서 찾아라.
23. 인간의 뇌 속에는 수만 가지가 들어 있다. 먼저 ‘뇌’에서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찾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찾아라.
24. 자기 실력으로 연구해서 찾는 것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기도해서 받아서 찾는 것도 있다.

25.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26.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만나는 것이다.
27. <생각>을 보고서 ‘죽었다’, 혹은 ‘살았다’ 한다.
28. 하나님은 ‘생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생각>이 살아 있는 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난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나? ‘사랑하는 것’이다.
30. 모든 존재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 신비함, 가치’가 좌우된다.
31. 인간도 어떻게 행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 신비함, 가치’가 좌우된다.
32. 성자와 대화하며 <생각>을 의논하는 것이다.

<2014년 4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부지런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더 많다. 그 이유는 게으른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으르면 얻는 것이 아주 적고, 어떤 것은 아예 얻지 못한다.
2. 사람이 <뇌 체질, 몸 체질, 행동 체질>에 따라서 무섭게 행해지고, 혹은 무섭게 안 행해진다.
3.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뇌가 굳는다.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뇌가 굳었더라도 다시 부지런히 배우고 행하면, 굳은 뇌가 풀어진다.
4. 단단한 바위라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면 깨지듯,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하면 바위같이 굳은 뇌가 깨지게 된다.
5.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굳은 뇌를 깨부수게 된다.
6. 뇌가 굳은 자는 본인은 이미 ‘정도’가 넘어가 버렸기에 감각이 없어서 자기 뇌가 굳었는지 모른다.
7. 뇌가 굳으면, 뇌가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여 좋고 나쁜 것이 생각되지 않는다.
8. ‘뇌가 굳었다’라는 것은 뇌성마비 환자처럼 뇌가 마비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뇌가 굳은 병’은 강하게 배우고, 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행해야 고쳐진다.
9.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한다. 그러나 검진해 보면 치명적인 병이 있다.
10. 뇌가 굳은 사람도 “나는 괜찮아.” 한다. 그러나 뇌가 안 굳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바로 뇌가 치명적으로 굳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11. 뇌가 굳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바위 위에다 씨를 뿌리는 격과 같다. 고로 아무 소용없다.
12. 뇌가 굳은 사람은 보고 들어도 마치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격과 같다. 고로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
13. 뇌는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 습관이 되어 굳어진다.
14. 굳은 뇌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굳은 격과 같아서 부숴야 된다.

15. <뇌>에다 ‘어떤 죄의 생각’이나 ‘불의한 생각’을 두면, 자꾸 그 생각이 나서 행하고 싶어진다. 그러다 결국 행하게 된다. 아예 <뇌>에서 ‘그 생각’을 없애야 안 행해진다.
16. <뇌>에서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서 안 행해지듯, <뇌>에서 버리면 ‘생각’이 없으니 안 행해진다.
17.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18. ‘성자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19. ‘성령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20.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꽃도 다 있으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 것만 남아 있다.
21. <생각>을 가상으로 나쁘게 해도 ‘뇌신경’이 금세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생각>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할 때만 영이 ‘하늘나라 형제’로 변화된다.
23.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낮게 표현하고, ‘생각의 차원’이 높으면 높게 표현한다.
24. ‘지능’이 낮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못 느끼고, 모른다.
25. 알아도 조금 알면, 조금 유익이다.
26. 지능이 낮은 자에게 줘 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능’이 낮고,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에게는 안 주신다.
27. 지능이 낮으면, 줘도 가치를 모른다. 쓸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능’이 낮은 자에게는 안 주신다.
28. 생각을 강하게 해라. 생각을 강하게 하는 만큼 굳은 뇌가 풀리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된다.
29. <흠>이 ‘황금’이다.
30.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곳이다. 왜? ‘자기 것’이니 좋은 것이다.
31. <고향>은 ‘사랑하는 환경 애인’이다.
32. 그러나 고향에서 고생을 많이 했으면 떠나기를 원한다.
33. <자기 나라>를 왜 좋아하느냐. ‘자기 것’이라 좋아한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나의 하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자’로 삼아라. 그래야 ‘자기 것’이니, 늘 좋다.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지능이 낮으면, 이해를 못 해서 그에게는 못 가르친다.
2. 결혼하면, 남편이 <아빠>도 되고, <오빠>도 되고, <친구>도 된다. 지능이 낮으면, <남편>만 된다면 이해를 못 한다.

고로 못 가르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대의 차원'에 따라서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부모>로 나타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나타나신다. 지능이 낮아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한다. 고로 못 가르친다.

4. 지능이 낮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고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못 가르친다.

5. 한국 '한강'의 물을 가지고 지역마다 이름을 달리 부른다. 그러나 지능이 낮으면 이해를 못 하니, 못 가르친다.

6. 구시대 사람들은 지능이 낮으니 '새 시대'를 오해한다. 고로 새 시대에 대해서 못 가르친다. 크면 스스로 알게 되기도 하니, 아는 자에게만 말하고 가르쳐 줘라.

7. 지능이 낮으면 '요강'을 예쁜 그릇으로 보고 '국그릇'으로 쓰고, '꽃 화분'으로 쓴다. 공장에서는 요강을 '오줌 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지능이 낮아서 '국그릇, 화분'으로 써 버릇했으니, 꺼림이 없다. 오히려 요강을 자랑하고 다니고 있다.

8. "사람에게는 <육>과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육계에서는 육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다니기도 하고, 혼과 영이 함께 다니기도 한다. <육>이 죽으면 <혼>이 <영>과 일체 되어 영계에 가서 산다." 하면, 지능이 낮은 자는 오해하거나, 혹은 아예 이해하지 못하여 생각도 안 하고 산다.

9. 지능이 낮으면, 옛날에 살던 대로만 살게 된다.

10. 지능이 낮으면, 40~50대가 돼서도 10대의 생각과 행위로 살아간다.

11. 지능이 발달되어 높은 사람은 어제보다 '생각과 행위의 차원'을 높여서 살아간다.

12. 지능이 낮은 사람은 10년, 30년이 지나도 늘 '그 위치'에서 살아간다.

13. (영계에서) 짐승도 어제 다녔던 '험한 길'은 겪어 보고, 오늘부터는 그 길로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산길'로 다니고 있었다.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뒤를 따라 '산길'을 사용하고 있었다.

14. <몸통>으로만 사는 자는 고생이 많으니, <머리>로 사는 자를 보고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쉽다.

15. 미련한 자는 <몸>을 건드려야 자극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생각>만 건드려도 알고 행한다.

16. (영계에서) 모두 앞에 간다고 따라가지 말아라. 노새들이 이동하다가 언덕에 부딪쳐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몇몇 노새들은 자기 힘과 요령대로 언덕으로 올라갔다. 못 올라간 노새는 애를 태우고 있었다. 그중의 한 마리가 옆으로 먼 거리를 돌아가서 절벽 거치지 않고 푸른 언덕에 올라갔다. 그놈을 따라간 노새들은 모두 다 무사히 언덕으로 올라갔다. 실력도 없는데 앞에서 언덕을 기어 올라가던 노새들은 지쳐서 쓰러져 있었다. 이에 뒤에 있던 악어들이 기어 올라와서 결국 모두 잡아먹었다. <끝> (만화로 간단히 움직이는 화면으로 표현, 씨티엔에 주세요)

17. 지능이 낮은 자는 지구를 돌아서 가고, 지능이 높은 자는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어 그 자리에서 열고 산다.

18. 내 고향 사람들은 모두 <월명동>을 벗어나서 살려고 나갔으나, 지혜자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그곳을 이상세계로 만들어 놓고 누리며 산다.

19. 지능이 낮으면 서서 오줌 싸고, 지능이 높으면 서서 오줌을 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자와 남자 입장이 다르다.

20. 지능이 낮으면 고생하고, 자기 무지와 미련함이 결국 자기를 죽인다.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신앙의 지능도 높이려면 ‘주’께 배워라.

<2014년 5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21. 지능이 낮은 구시대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 돌아올 줄 알고 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어제 죽은 자’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육신이 살아 있는 사람들도 ‘지난날의 삶’을 다시 살 수 없다. <어제>는 이미 지났고, <과거>는 이미 지났다. 엄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40대가 됐는데, 10대의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2000년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 온다는 것이냐. 지능이 2000년이나 떨어져 있으니, 이해를 못 한다. 지능이 높은 자가 그들을 보고 답답하여 가르쳐 주면서 “<시대의 해>가 지기 전에 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일을 서둘러서 재촉하면서 하자.” 한다.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22. <옛 시대의 일>은 ‘옛날 사람’이 그 시대를 살면서 했다. 그 ‘육’이 한 번 죽으면, <육의 삶>은 그것으로 영원히 끝난 것이다. 다만 그 ‘영’이 ‘혼’과 일체 되어 <영의 세계>에서 사명을 하며 산다. 아무리 <사명>이 있어도 ‘육’이 죽으면, ‘영’을 가지고 육신을 가진 자들을 돕고 행할 뿐이다.

23. <영>들은 ‘영계 정치’를 하고, ‘영계의 삶’을 산다.

24. 육계에서는 ‘육신’을 중심으로 하여 ‘영’이 도와주고 협조하면서 행한다.

25. 육계는 ‘육신’이 중심이 되어 ‘혼과 영들’과 함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간다.

26. <육신>은 이 세상에서 ‘한 번’ 살고 끝나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난다. 썩어서 끝나든지, 미라(mirra)가 되어 말라서 끝난다. <혼과 영>만 남아서 ‘육신의 행위’대로 ‘선의 세계’, 혹은 ‘악의 세계’로 간다.

27. 지능이 낮으면, <우상>을 섬기면서 구원받고 좋은 세계에 가는 줄 안다. 전능자 하나님이 영계를 통치하시며, 모래알만 한 것도 그냥 두지 않고 모두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 <영>을 ‘선의 세계’, 혹은 ‘악의 세계’로 보내신다. <물>은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바다’로 흘러가듯, <인간의 영>도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선의 세계’, 혹은 ‘악의 세계’로 가게 된다. ‘자기 육의 행위’가 <길>이 되어 ‘자기 영’을 인도한 것이다. 지능이 낮으면, 육의 인생 100년을 오직 ‘육’만 위해 산다. 그러다가 그 ‘행위’대로 자기 영을 ‘사망의 세계’로 인도한다.

28. 지능이 높은 자는 ‘영’을 위해서 살고, 그 ‘육의 행위’로 인해 그 영이 ‘영원한 나라’에 간다.

29. 지능이 낮은 자는 잘난 척을 하며 자기주장과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세상 것’을 뇌 속에 꼭 채우고 ‘육’만을 위해 살아간다. 고로 그 머리에는 ‘빛과 지혜’가 들어가지 않는다.

30. 지혜자는 미련한 자에게 실오라기만큼도 ‘빛’을 주지 않는다.

31. 어둠이 사라지면, ‘빛’은 ‘하늘 빛’과 일체 되어 <빛의 세계>로 간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속한 자가 ‘참빛’이다.

33. <구시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대우도 ‘종’, 혹은 ‘자녀, 형제’ 대우다.

34. <새 시대>는 아예 ‘체재’가 다르다. ‘사랑의 대상인 애인, 신부’ 대우를 받는다.

35. <구시대>는 걸어가면서 ‘종’, 혹은 ‘자녀, 형제’ 대우를 받지만, <새 시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애인, 신부’로 대우 받는다.

36. <구시대>는 천 리 길을 걸어가서 할 말을 전하듯 하고, <새 시대>는 지능이 발달되어 앉아서 ‘전화’로 할 말을 전하듯 한다.
37. <구시대>는 ‘초가집’에서 살고, <새 시대>는 ‘별장’에서 산다.
38. <구시대>는 삽으로 흙을 파내듯 신앙의 삶을 살고, <새 시대>는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내듯 신앙의 삶을 산다.
39. 백지장 너머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구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가 뭘 하는지 알겠느냐.
40. 새 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를 거쳐 왔기에 구시대가 어떠한지 알지만, 구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에 안 와 봤기에 새 시대가 어떠한지 전혀 모른다.
41. <이해>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전지전능하시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지능이 낮아 모르는 자들과는 답답해서 같이 못 산다고 하신다. 사람끼리는 더 답답한데, 어떻게 새 시대 사람들이 구시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
42. 미련한 자는 ‘미래’에 가서 못 산다.
43. 미련한 자는 ‘할 일’을 미리 못 해 놔서 같이 못 산다.
44. 미련한 자와 같이 살면, 같이 미련해진다.
45. 사탄들이 너무도 아는 척을 하여 내가 알면서도 사탄에게 물어봤다. “너는 어떤 사람이 꺾어 가기 쉽냐?”고 물으니, 사탄은 말하기를 “멍청한 자, 생각이 흐리멍덩한 자, 해 줘도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 모르는 자, 구시대 사고와 인식이 뇌에 꽂 차 있는 자들이 특히 거저먹기로 제 발로 걸려들어서 어둠의 사탄 세계로 온다.” 했다.
46. 사탄은 미련한 자들을 꺾어 가면서 “이놈, 정말 멍청하고 미련하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도 멍청하고 미련하냐? 전능자 하나님을 그리도 형식으로 믿고 알고 사냐? 영의 세계를 그리도 몰라?” 하고 화를 내며, 답답하니 발로 차고,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차기도 한다.

<2014년 5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47. 미련한 자는 ‘할 일’을 미리 하지 않고 닥쳐서 하고, 때 지나서 한다.
48. 미련한 여자는 멀리하기다.
49. 미련한 자는 마치 ‘개발 전 지역’과 같다. 개발하면 된다. 개발했어도 별로인 자는 미리 계산하고 개발하지 말자.
50. 미련한 자는 적당주의, 안일주의다. 밥이든, 죽이든 섞어서 먹고 살면서 “먹고 사니 다행이다.” 한다.
51. 지혜자는 하기 전에 ‘수고와 대가’를 계산해 보고 행한다.
52. 미련한 자는 다 하고 나서 계산해 본다.
53. 미련한 자는 돌이 흙이 되면 농사를 지으려고 기다린다.
54. 지혜로운 자는 바위 위에 흙을 파다가 덮고, 농사를 지어 그 해에 거둬들인다.

55. 지혜자는 ‘앞’으로 가고, 미련한 자는 ‘뒤’를 향해 간다.

56.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 봤다. 그런데 똑같아서 알 수가 없었다.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속’을 보고, ‘마음’을 보고, 혼계에서 ‘생각’을 봤다. 지혜자는 ‘깨닫고 알고’ 하고,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고 ‘관념’으로 했다.

57. 미련한 자는 <영원한 길>을 가다가 말고, 지혜자는 <생명길>을 확실히 알고 고생돼도 끝까지 생명길을 간다.

58. 미련한 자는 궁궐을 지을 나무로 초가집을 짓고, 일생 동안 초가집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59. 지혜자는 초가집을 지을 나무로 개집을 짓고, 큰 나무를 베다가 궁궐을 짓고 산다.

60. 미련한 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신의 예정’이라고 한다. 초가집에 살면서도 “신이 내게 준 팔자이며 운명이니, 할 수 없다.” 하며 그냥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

61. 지혜로운 자는 창조주께 물어보고 그리 사는 것이 ‘신의 예정’이 아니면, 즉시 초가집을 부수고 궁궐을 짓고서 성삼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62.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뜻이라고 하며 자기를 묶어 놓고 자유 없이 넓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

63.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에서 육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천국>에 오라고 창조하셨다.

64.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을 보아라. 옛것에 매여 자기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4000년 전, 5000년 전에 하던 일들을 “전통이다. 옛날에 순수하게 신앙을 했던 대로 하는 것이다.” 하며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자유 없이 묶여 살아간다. 하나님과 한 번만 통해도 그 미련한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지능대로 살아가니, 어쩔 수 없다.

65. 미련한 자란, <새 시대>에 살면서 ‘옛 시대 삶’을 사는 자다.

66. 짐승들도 옛날 짐승들은 너무 지능이 낮아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 먹지 못해 굶주리다 죽었다. 지금은 겨울에 굴로 들어가고, 먹는 것도 풍부하게 먹고 제명대로 산다. 사는 것도 고차원적이다. 사람도 옛 시대와 달리 살아야 된다.

67. 미련한 자는 했던 것을 거듭 행하여, 그것이 체질이 되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68. 지혜로운 자는 한 번 해 보고, 행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한층 더 높이 올라가서 행한다.

69.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복하면, ‘몸’에 배고 ‘마음’에 밴다.

70. <나쁜 생각과 습관>은 버려라. 그래야 <좋은 생각과 습관>이 와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

71. 하고 싶어도 ‘뇌’가 굳으면, 보고 들어도 ‘생각’이 아예 안 나서 못 한다. 고로 뇌를 풀고 난 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면서 해라.

72. 사람은 100% 기억하고 암기해도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잊어버린다. 마치 눈으로 볼 때는

생각나지만, 다른 것을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듯,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 고로 눈으로 계속 보듯, 계속 생각해라.

73. 말씀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휴거도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 계속 생각해야 잊지 않는다.

74. 지혜는 '뇌'에서 작동한다. 고로 '뇌'를 고치고, '생각'을 더 잘하려고 집중하기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매일 지혜를 구하고 행하기다.

75. 궁금하면,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해라. <생각>이 '답'이고, <행실>이 '답'이다.

76. 성자와 대화하는 자가 없으니, 성자를 찾고 부르기만 하면 성자께서 속 이야기, 겉 이야기 많이도 해 주신다.

77. '성자'라는 백화점을 사용하는 자가 너무 없어서, 가기만 하면 대환영을 해 주면서 받는 자만 알도록 풍부히 주신다.

78. 미련하게 살면, 인생 100년 살아도 남는 것이 없다. '미련한 자가 100년 산 것'은 '지혜로운 자가 1년 산 것'만도 못하다.

<2014년 5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손발>이 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쏜다.

2. <손발>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뇌>가 피곤한 것이다.

3. <손발>이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라 <뇌>가 인식을 잘못된 것이다.

4. <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인식한다.

5. 보고 들어 <뇌>에 저장된 것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뇌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고, 그때부터 쓰고 행하게 된다.

6. 보고 들은 것은 '뇌'라는 그릇에 담아, 바로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 판단하기 전에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7.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일어난다.

8. <지능>이 낮은 자는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9. '사기꾼'과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 자꾸 보여 주고 말을 해 주면서 자기의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유인한다.

10.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면 인생 고생하고, 손해 보고, 죽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기도 한다.

11.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12. 악인들에게 의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인을 달리 보이게 한다. 고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의인도 그러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절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실수하고 망한다.

13. 착한 사람들과 의인들은 잘 속는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같이 착하고 의롭게 보기 때문이다.
14. <비유>가 중한 것이 아니라 <실상>이 중하다.
15. 주 강림, 성자 강림이 <재림>이다. 주 맞음, 성자 맞음이 <휴거>다.
16. 땅에서 육으로 주를 맞고, 그를 통해 성자를 맞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육 휴거>요, 영으로 성자 본체를 맞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영 휴거>다.
17. 성자와 주를 ‘뇌’에 담고 살아라.
18. 성자와 주를 ‘뇌’에 담고, 늘 ‘생각’하고, ‘몸’으로 매일 살아가기다.
19. <설교>는 내용을 심정적으로 전달해야 능력 있다!
20. 설교를 하나의 설교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불을 붙인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전해야 된다.
21. 설교자들은 설교를 하나의 설교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불이 붙겠느냐. 표상을 따라 하여라. ‘말투와 몸짓’을 따라하지 말고, ‘심정’을 배워라. ‘어떻게 불을 던지는지’ 배워라.
22. 기도하여 <영적 능력>을 받고, <성자와 본체의 심정>을 받고 설교하기다. 그리함으로 매 설교마다 ‘불’을 던지기다!
23. 말씀을 주신 성자와 일체 되고, 그 육과 일체 되어, 성자와 그 육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되어 전해야 말씀이 권세 있다! 감동된다! 불이 나간다! 고로 청중을 뒤집어 놓는다! 고로 휴거가 가능하게 해 준다!
24.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주인>이 되어 삼위일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편다.
25.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본으로 깨달은 자’가 삼위일체와 함께 펴 나간다.
26. 마패를 보면, 말의 수대로 위력과 권세의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성자와 주를 아는 만큼, 그를 알고 말씀을 행하는 만큼 ‘위력’과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다르다.
27. <근원>은 하나에서부터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다.
28. 자기를 중심해서 살면, 죄를 짓는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네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생각해라. 찾아라. 불러라! 이것이 성공 비법이다.
30. 거목도 처음에 클 때는 젓가락같이 하나 솟아오른다. 그러다 크면, 옆에서 가지가 솟아난다.
31. 차원을 높이려면 더 정신 차리고, 더 생각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그 강한 정신과 생각으로 행해라! 그러면 차원이 높아진 것이다.
32. 차원을 높이는 것이란, ‘현재보다 더 하기’다.]

<2014년 5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 마지막 꿈에 네 혼체가 순간 보고 행한 일은 ‘네 육신의 행실’을 보여 준 것이다.

2.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꼭 행하여라.
3. 꼭 하면, 꼭 된다.
4. 꿈 실현, 마음 실현이다.
5. 꿈 실현, 몸 실현이다.
6. 희망 실현, 몸 실현이다.
7. 네 '꿈'을 이루려면, 꿈에 본 것을 낮에 행하여라.
8. '꿈'이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보고 희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9. 낮에 좋고 이상적인 생각과 구상을 한 것도 '꿈'이다.
10. 성자께 '희망의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11.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좋고 이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꿈을 가져라.
12. 매일 네 꿈이 지나간다. 그러나 그 꿈을 모르면, 강물같이 흘러간다.
13. 꿈을 보고, 꿈을 잡고, 꿈을 이루려면, 꿈을 찾아라!
14. 보화는 네 머릿속에 있다.
15. <생각>이 보화다.
16. <땅의 보화>, <하늘의 보화>다.
17.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보화>를 찾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보화>를 찾는다.
18. 뇌 속에 수만 가지의 보화가 묻혀 있다. ① 뇌에서 생각하고, ② 또 육으로도 찾고, ③ 세상에서도 찾고, ④ 영적으로도 찾아서 <하늘의 보화>를 찾는 것이다.
19.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할 일'이 생각난다. '할 일'을 찾은 것이 '보화'를 찾은 것이다.
20. 낮은 데는 '비'가 오고, 높은 데는 '눈'이 온다. <뇌의 생각>도 그러하다.
21.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물'을 얻고, <생각의 차원>이 높으면 '눈'을 얻는다.
22. 생각을 얼마나 차원 높게 하느냐 그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비'를 보거나, 혹은 '눈'을 보게 된다. 육계에서도 그러하고, 영계에서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23. 사람도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대하면, '물'같이 보이던 마음과 행위와 형상과 모습이 '눈'같이 보인다.
24. 대하는 대로, 만드는 대로 '형체'가 달라진다.

25. <생각의 강도>를 높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된다.

26. 특히 <사람의 뇌의 생각>은 높이, 깊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또렷한 형상’이 되어 ‘전혀 다른 행위’를 하게 된다. 고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얻게 된다.

2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뇌’에 축복을 주신다. 고로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삼위가 주신 축복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

28. 새벽에 깊이 집중하여 성자께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면 <생각의 차원>을 높이게 되어 ‘할 일’이 생각나서, 그 날 그 일을 행하여 그 날 얻게 된다.

<2014년 5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뇌>는 생각하지 않으면 잠을 자고, 무기력해지고, 늙는다.

30. <나이>는 어린데, <뇌>가 늙은 사람들이 많다.

31. <나이>는 어린데, <얼굴>이 곱늙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 <뇌>도 그러하다. <나이>는 어린데,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꾸 <뇌>를 놀리니, <뇌>가 늙은 것이다.

32. 자꾸 <뇌>로 생각해라. 그리고 <몸>으로 행해라. 그러면서 자기를 관리해라.

33. <산>도, <정원>도, <자기 자신>도 놀리지 말고, 부지런히 생각하고 행하며 관리해야 된다.

34. 저마다 ‘산’이나 ‘들’이나 ‘세상’에서 <필요한 보화>를 찾기 전에, 먼저 ‘뇌’에서 구상하고 생각하며 <보화>를 찾아라. 그리고 ‘현실’에서 찾는 것이다.

35. <뇌>에서 못 찾으면, <현실>에서도 못 찾는다.

36. ‘뇌의 생각’에서 찾아야 찾는다.

37. 먼저 생각하고 인식해야 현실에 있어도 찾을 수 있다.

38. 먼저 ‘생각의 눈’을 떠라. 그래야 ‘육의 눈’을 떴어도 찾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고 보면, 봐도 모르기 때문이다.

39. 신과 같이 생각해야 신같이 생각하게 된다.

40. 매일 찾으면, 매일 찾게 된다.

41. 사람은 자기 <뇌의 생각의 차원>대로 천층만층으로 행하며 살게 된다.

42. 살기는 사는데 ‘어떤 차원에서 사느냐’가 문제다.

43. 하기는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하느냐’가 문제다.

44. ‘삽’으로 하느냐, ‘불도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 ‘어떤 차원의 생각’으로 하느냐에 따라 <행실>도 <삶>도 달라진다.

45. 말씀도 하기는 하는데 ‘뇌의 생각의 차원’에 따라 <은혜>가 달라진다.

46. 사람의 ‘생긴 모양’과 ‘행실의 차원’은 천층만층이다. ‘뇌의 생각의 차원’도 천층만층이다.
47. ‘더 좋은 것’은 얼마든지 있다.
48. <뇌 차원>을 최고로 높이고 생각하면, ‘최고의 것’을 얻게 된다.
49. <말씀의 차원>은 ‘내용과 표현의 차원’에 따라 달라진다.
50. 차원을 높여야 감동된다.
51. 차원을 높여야 어린아이 같은 부끄러운 행위를 벗어나 ‘신의 차원’에서 살게 된다.
5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행위대로 대해 주신다.
53. 차원을 높여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크게 역사하시고, 희망으로 대해 주신다.
54. 차원을 높여야 자기의 낮은 주관권을 벗어난다.
55. ★ 과거에 뇌가 쭈시게 고통을 겪었던 때를 생각하고, 지금 <좋은 날>이 왔을 때 ‘뇌’를 불나게, ‘생각’을 불나게, ‘마음’을 불나게, ‘몸’을 불나게 하여 <큰일>을 해야 된다. 지금 못 하면, 이제는 정말 사망길로 빠지게 된다. 기회가 지나가면 탄식한다.
56. 뇌 차원이 낮으면, 꿈과 희망으로 그리던 <천국 황금성>을 그냥 지나치게 된다.
57. 뇌 차원을 높이면, 5척 방도 <황금성>같이 느끼고 산다.
58. 뇌 차원을 높이면, 달동네도 <황금성>같이 느끼고 산다.
59. <일>도 깔짝거리고 하고, <생각>도 깔짝거리고 하면, ‘깔짝’에서 끝나게 된다.
60. 크고 좋은 나무를 옮기는데, 깔짝거리면 못 옮긴다.
61. 본격적으로 ‘뇌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또 높이면서 행해라. 그래야 ‘아름답고 멋지고 큰 일’을 하게 된다.
6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크고 멋진 일’을 하신다. 네가 ‘뇌 차원’을 높여야 삼위가 너에게 ‘크고 멋진 일’을 주어 얻고 누리게 하신다.

<2014년 5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눈의 각도’에 따라 똑같은 사물이라도 형태가 다르게 보이듯, 마음의 눈인 ‘생각의 각도’에 따라 똑같은 것이라도 각종으로 달리 보이고 달리 생각하게 된다.
2. 본(本)형상이 어떻게 생겼든지, ‘사진을 찍은 각도’대로 그 형상이 보인다.
3. 주먹만 한 돌도 확대시켜 찍거나 확대시켜서 인화하면, 얼마든지 엄청나게 큰 바윗덩이로 보이게 할 수 있다.
4. ‘자기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성경>도, <영계의 것>도, <육계의 것>도, <구원자>도, <사람>도 천층만층으로 달리 보인다.

5. '사물의 본(本)형상'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보듯,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들>도, <사물>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6. 어린아이는 아직 성장되지 않아서 <작은 것>을 봐도 '크게' 보고, <큰 것>을 봐도 '작게' 본다.
7. <사물>이나, <사람>이나, <영계의 것>이나, <학문>이나 '뇌 차원'에 따라서 보게 된다. 고로 '뇌 차원'이 낮으면,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
8. 성장하여 뇌의 기능이 정상적인 자가 볼 때, 완벽하다.
9. 인간은 신이 아니어서 성장되고 완성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인간이 성장했어도 정확하게 볼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성장했어도 '자기 마음과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보는 것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고로 <신의 눈, 신의 마음, 신의 생각>에 맞춰서 보고 생각해라.
10. <인간의 눈,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은 너무도 '착오'가 많다.
11. 완전하게 확인하고 안 사람은 누가 그릇되게 보여 주고 말해도 안 속는다.
12. 어떤 사람은 그 면에서 지능이 낮으니, <좋은 것>을 봐도 '안 좋게' 보고, <안 좋은 것>을 봐도 ' 좋게' 본다.
13. 많이 배우고 알아서 <정상적인 뇌>가 되고, 거기에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야 '선택'을 잘한다.
14. 기독교는 '성경'에 대해 지능이 낮아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여,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며 막연하게 믿고 살고 있다. 고로 그 육도 영도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15. 기독교는 '육신이 하늘나라로 간다.' 하며, 2000년 동안 <육신 휴거>를 주장하며, 그 후손들도 대대로 <육신 휴거>를 100% 믿고 살았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인식하고 보면, '육'은 절대 하늘나라로 휴거되지 않는다. '혼과 영'이 하늘나라로 휴거된다. 성자 본체가 와서 '영'을 휴거시켜도 <육신 휴거> 개념과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육신이 살 동안에도, 영으로도 <휴거>를 모르고 살게 된다.
16.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인식하지 말아라.
17. <해>와 <달>은 전체를 크게 보면 '원'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 보면 '평지'로 보인다. 작게 보기 때문이다.
18. <지구>는 전체를 크게 보면 '완전한 원'이다. 그러나 사람이 실제로 지구에서 살면서 보는 곳은 다 '평지'다. 이는 일부만 작게 보기 때문이다.
19. <지구 전체>는 '원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평지'만 보고 생활하며 살아간다.
20.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절대 신'으로서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도우신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들이 살 때는 저마다 고통, 걱정, 염려,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니 자기가 보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안 믿는다.
21. <지구>는 실제로 '원'인데, '원'을 보고 느끼고 겪으며 살아가려면 <지구 전체>를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
22.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떠나 기쁨으로 사신다. 그러나 인간이 살 때는 고통, 염려, 걱정 속에 산다. 그 이유는 '작게' 생각하고 행하며 살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크게' 생각하고 행하며 산다면, 실제로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신같이 보고 느끼고 겪으며 살 수 있다.

23. 지구는 '원'이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평지'로 보인다. 지구가 너무 크니, 눈으로 보면 그 큰 지구를 눈에 다 담을 수 없기에 '평지'로 보인다. 지구를 '원'으로 보려면, 다 돌아다녀야 된다. 조금만 보고 조금만 걸어 다니니, 지구가 '평지'로 보이는 것이다. 배를 타고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지구 끝까지 전체를 다 가 봐야 '지구는 원'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

2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실제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나 인간이 '조금'만 보고 사니, '조금'밖에 안 느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 것 '전체'를 봐야 그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느껴진다.

25. 지구를 '일부'만 보면, 지구가 '원'이라는 것이 안 느껴진다. '공중'에서 '전체'를 봐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영계 공중'에 떠서 보아라. 그러면 그 전지전능하심이 느껴지고, 보이고, 그때는 말이 필요없다. '전체'를 보아라.

26. 어린아이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여 줘도 '어린아이 뇌 차원'대로밖에 못 느낀다.

27.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불고기를 만들어 주고, 과일을 썰어 놓고, 진수성찬을 푸짐하게 차려 줘도 못 먹는다. 갓난아기에게는 '엄마의 젖'이 진수성찬이다.

28. '뇌 차원, 생각 차원, 행동 차원'이 낮은 인생들은 전능자가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오히려 "너무 커서 별로다. 내게 안 맞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 않다." 한다. '자기 차원'대로만 느끼고 누린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같이 제대로 많이 느끼고, 누리고, 감당하고, 얻고,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많이 배워라. 그리고 사랑해라. 그리고 일체 되어라. 그리고 진정 그의 생각으로 행하며 살아라. 또한 그가 보낸 세상의 구원자를 통해서 배워라. 그와 하나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뇌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발달되지 않아서 봐도 모른다.

30. <행복>이 많다는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서 그 차원으로 배우고 알고 성장되어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31. 육적으로만 성장되어 보고 느끼고 행하여 누리는 행복은 '육신 차원 급의 행복'이다. '혼과 영의 세계'는 참으로 높고 높다.

<2014년 5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일을 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된다.

2. 생각을 깊이 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된다.

3.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다.

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모양과 형상을 기반으로 하여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다.

5. 하나님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한 것이라도 인간이 그만큼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써야 된다.

6. '깨닫는 것'이 '보는 것'이다.

7.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깨닫고 보기'다.

8. 산과 들과 만물들을 깨닫고, 차원 높여서 보아라.

9. 깨닫지 않고 보면 보통으로 구별만 하며 보게 된다. 그러나 깨닫고 높은 차원에서 보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보이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쪼개져 보인다.
10. 꿀벌은 '시력'이 안 좋아서 꽃 한 송이가 모두 하나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시력'이 좋고 '뇌의 차원'도 높으니, 꽃 한 송이를 봐도 '꽃잎', '꽃 수술' 하나하나가 구분되어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인다. '뇌 차원이 낮은 자'와 '뇌 차원이 높은 자'가 무엇을 똑같이 봐도 '뇌의 차원'대로 천층만층으로 달리 본다.
11. <시력>이 정상이어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보인다.
12. <시력>도 정상이고, <생각>도 정상이어야 제대로 본다.
13. <생각>이 정상이라도 <시력>에 이상이 있으면, 못 본다. 그러나 <생각>으로 느껴 보는 것은 <시력>과 상관없이 <눈>을 감아도 보인다.
14. 생각을 안 하면, 잠자는 것과 같아서 정지된다. 모른다.
15. <무지>같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고 인간을 죽이는 것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16. 굳게 각오하고 결심해도 그 마음이 쉽게 식는다.
17. 희망을 얻었으면, 써야 된다. 계속 희망이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을 얻었으면, 다음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 희망이 또 온다.
18. <희망의 산>에 올랐어도 그다음에 또 <희망의 봉>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 <희망의 봉>에 올라야 된다. <인생의 희망>도 그러하고, <휴거의 희망>도 그러하다.
19. 벌은 종류가 많다. 말벌, 땅벌, 꿀벌, 호박벌, 작은 날파리 같은 벌들도 있다. 말벌, 땅벌, 호박벌, 작은 날파리 같은 벌들은 꿀을 안 만들고, 자족하고 끝난다. 꿀벌이 꿀을 만든다. 이 꿀을 인간들이 특유한 식품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 잘못된 종교인들은 말벌, 땅벌, 작은 날파리 같은 벌이 꿀을 만들지 않듯,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족하고 끝난다. 꿀벌만 꿀을 만들듯,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
20. <순간의 기회>를 잡고 행하여 살고, <순간의 기회>를 놓쳐서 죽는다.
21. 사람을 구하는 데는 '장비'가 생명이듯,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22. '장비'가 좋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는 '말씀'에 따라 구하기도 하고, 못 구하기도 한다.
23. 사람을 구하는 데 '기술'에 따라 구하기도 하고, 못 구하기도 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말씀의 기술'에 따라 그 구원이 좌우된다.
24. <육신>이 죽으면 살릴 수 없지만, <영혼>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도 있다.
25. <영혼>이 죽으면 사망권으로 가 있기 때문에 '때'를 놓치지 않으면 다시 구원할 수도 있다.
26. 그러나 '때'가 지나면 <죽은 육신>을 못 살리듯 <죽은 영혼>도 못 살린다.
27. 사람이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어도, 죽은 후에는 '침단 장비'와 '수억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도 못 살린다. 고로

죽기 전에 살려라.

<2014년 5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원수>도, <자기를 억울하게 한 자>도 ‘자기 갈 길’을 위해서 모두 다 용서하고, 사탄에게 조건 잡히지 않게 하고 가야 된다. <원수>라도, <자기를 억울하게 한 자>라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힐문한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생명길>을 가라.
2. <사랑>으로 다스려라. <사랑>이 가장 강하고, 힘과 능력이 있다.
3.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강하되, <사랑>이 핵이 되어 강해야 된다.
4. <정신>이 강하면, 하나의 정신 지도자가 된다.
5. ‘참사랑’으로 정신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다스려야지, ‘자기 정신’으로 강하게 다스리면 하나님을 떠난 다스림이 된다.
6. 모든 것을 ‘참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갖추고서 해라.
7. 성자를 최고로 강하게 사랑해야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최고로 강한 자 취급을 받는다.
8. <인간의 정신적 사랑>은 ‘육체적인 정신적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된 사랑>이 ‘참된 정신적 사랑’으로서 ‘살아 있는 사랑’이다.
9. 창조주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의 육’도 창조하고 ‘영’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의 사랑>과 <창조주의 정신>을 넣어 창조하셨다. 고로 창조주와 일체 돼야 사랑도 강해진다.
10. 자기가 하나님과 성자를 100% 사랑해야 ‘하나님과 성자의 것’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
11. 사랑하는 대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12. 사탄의 삶을 살면, 사탄을 사랑한 것이 되어 ‘사탄의 것’이 된다.
13. 사람이 <육적>으로는 정말 아깝고 귀한 것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뜻 길>과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여 <사망길>로 갈 때는 ‘썩은 물건’과 같고, ‘차가 텅굴어서 다 망가진 것’ 같아서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인다.
14. 사람이 망가지기 전에는 귀히 보인다. 그러나 타락하고, 탈선하고, 가치를 상실하면 ‘무가치한 인생’이 된다.
15. 사람이 죽기 전에 아름답고 귀한 자로 보인다. 그러나 그 육이 죽으면, 그 육은 무가치하게 보인다. / 섭리사에서 ‘사슴’같이 귀히 보이던 자도 타락하고 탈선하면 ‘쥐’로 보인다.
16. 산 너머 만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전쟁 중에 거의 다 죽고 몇 명만 굴속에 살아 있다고 하면, 그 몇 명을 보고 구하러 간다. 살아 있는 자를 귀히 본다.
17. 인간도 타락하기 전에는 귀하다. 그러나 타락하여 <사망길>로 가서 끝난 자는 아깝지 않다.
18. 그렇게도 귀히 대했던 자도 <사망길>로 가면, 구원자도 마음을 비우고 ‘무가치’로 생각한다.
19. ‘자기 애인이었을 때’는 귀하다. 그러나 자기 품을 벗어나서 ‘남의 것이 됐을 때’는 무가치하게 본다.

20. 성자는 성자를 사랑하는 자를 산 자로 보시며 그리도 귀히 보시고, 자랑하시고, 하늘 높이 떠받들고 말씀하신다. 성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앙적으로 영이 죽은 자이기에 무가치하게 보신다.
21. ‘죽은 호랑이’보다 ‘살아 있는 토끼’가 더 귀하다.
22. ‘<사랑>이 살아 있는 자’는 어린 소녀라도 왕비같이 대하는 성자이시다.
23. ‘<신앙>이 죽고 <사랑>이 죽은 자’는 팔방미인이라도 살아날 때까지 시체 취급하고 대하는 성자이시다. 산 자의 하나님이며, 산 자의 성자이시다.
24. ‘<성자 사랑>이 살아 있는 자’에게는 더 투자하시고 더 몰두하시는 성자이시다.
25. <성자 사랑>이 없는 자는 ‘깨진 그릇’ 취급하신다.
26.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가고 있는데, ‘모르는 자’는 ‘죽은 자’다. ‘알고 따르는 자’만 ‘산 자’다. 성자는 ‘산 자들’을 중시하여 <시대 말씀>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역사를 펴 나가신다.
27. ‘시대의 잠을 자는 자들’은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이를 것을 못 이룬다.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 육신이 살아 있을 때가 기회다.
28. 영계에 가도 ‘죽은 영’은 안 보인다. 모두 ‘죽은 지역’에 가 있기 때문이다.
29. ‘성자와 주를 사랑하는 힘’으로 천국까지 가게 된다.
30. 성자와 주를 알아야 ‘사랑의 힘’이 생긴다.
31. 성자는 ‘영’이니, 그 보낸 자를 통해서 성자를 사랑해라. 그래야 그 육신을 통해 성자를 사랑하게 된다.
32. <막연한 사랑>은 ‘막연함’으로 끝난다.
33. <사랑>은 ‘이론’이 ‘실체’로 이루어져 존재한다. 이 세상도 ‘사랑의 이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사랑하여 ‘사랑이 실체’로 이루어져 존재하게 되었다. 이 세상의 작품들도 사랑해서 직접 만들어서 생긴 ‘사랑의 실체’다. <사랑>은 행하고 만들어야 ‘실체’가 되어 존재한다.
34. <성자와의 사랑>은 ‘이론’에서 ‘실체’로 이루어져야 된다.
35. <이론에서 끝나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허무한 짝사랑’이다.
36. <사랑>은 행함으로 형성되고, 행함으로 느끼고, 행함으로 실체가 된다.
37. 성자와 주와 일체 돼야 <사랑>을 느끼고, <사랑>이 실체가 된다.
38. <사랑>으로 생명도 구원한다. 미워하면 못 구한다.
39. <거짓된 사랑>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40. <삼위일체>는 ‘참사랑의 본체’다.

41. <땅의 사랑>은 변화무쌍하니 불안하다. <하나님과 성자와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그 사랑을 완전하게 만들어라.

<2014년 5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에서 성자를 신랑으로 삼고 '신부'로서 믿고 사랑하던 자들이 <영계>에서도 그 영이 '성자의 신부'가 되어 같이 산다.
2. 먼저 '종'에게 나눠 주고, 그다음에 '자녀'에게 나눠 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애인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지 못한다.
3.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일체 돼야 그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다.
4. 재림주를 기다렸지만 자기 당세에는 안 오니, 기다리다가 죽었다. 메시아가 나타난 <당세>에 태어난 자는 '육'으로도 메시아를 맞게 된다. <당세>에 태어난 자가 '시대의 혜택'을 본다.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육'이 죽은 자들도 '육'은 죽었지만, 그 '영'은 영계에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산다.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면, 그 영들도 영계에서 메시아를 '영'으로 맞고 살아간다. 메시아는 '성자의 육'으로서 '육신'이다. '인간'이다. 고로 늙으면 역시 죽는다. 고로 '메시아가 살아 있는 <당세>'에 태어난 자들만 그 모습을 보고 끝난다. '메시아가 죽은 후에 태어난 자들'은 <말씀>으로, <글>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그를 접하고 볼 뿐이다. <메시아>는 못 봤으나, <그가 전한 말씀>만 믿고 살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초림주도 그러하다. '초림주가 출현한 <당세>'에 메시아를 맞고 산 자들이 있고, '초림주가 죽은 후'에 다만 <말씀>만 믿고 사는 자들이 있다.
5. <천국>이든, <세상>이든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있고, '깨우쳐서 아는 것'이 있다.
6. 눈으로 봐도 깨쳐서 못 보면, 모른다.
7. <월명동>도 눈으로 봐도 모든 사연을 깨닫고 보지 않으면, <근본>을 모른다. 고로 <가치>를 모른다. 모든 사연을 듣고 깨치고 깨닫고 봐야 그때 <근본>을 보고 느끼게 된다. 그때 <가치>를 알게 된다.
8. <천국>도 그러하다. 깨쳐야 그때 크게 <기쁨>을 느낀다.
9. <성자>도 그러하고, <분체>도 그러하다. 깨쳐야 크게 느낀다.
10.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좋아하는 것'과 '성장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것'은 딴 세상이다.
11. '시대 말씀을 바로 배우고 깨쳐서 깨닫고 보는 것'과 '못 깨닫고 보는 것'은 다르다.
12. <월명동 작품 돌>도 그냥 보면 가치가 없다. '그 돌의 값'을 알고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그 가치를 알고 제대로 보게 된다.
13. <성자>도 <분체>도 제대로 알고 봐야 배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듯 한다.
14. <전능자 성자>라도 '인간'을 통해 행하실 때는 '인간의 모든 법칙'에 의해서 행하신다.
15. 예수님은 '육신 있는 사람'이었다. <전능자 성자>가 '그 육신'을 쓰고 행하셨다. 고로 <성자>는 '예수님이 겪는 것'을 따라 행하셨다. 가령 인간은 못 먹으면 배고프니, 성자도 거기에 따라 행하셨다는 것이다. 전능자가 행했다고 해서 '인간의 법', 곧 '인간이 겪는 것'을 떠나 '신의 법'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6. 사람이 어떤 일을 실제로 행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행한 것 같지 않다. 고로 '자기가 행할 일'을 매일 해야 된다. 그래야 실제 같다.

17. 사람의 <눈>은 무엇을 봐어도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고, 사람의 <뇌>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했어도 시간이 가면 잊어버린다. 고로 생활화하면서 쉬지 말고 반복해서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실체같이 느껴져서 실감 난다.

18. <육>은 무엇을 보거나 들어도 '보고 들을 때'만 생생하지, 시간이 지나면 뇌에서 잊어버린다. 고로 실감 나지 않는다. <육>이기 때문이다.

19. <영>으로 보고 들어야 오래가고, <영>으로 살아야 생시 같다.

20. 현실에서 보고 들어도 시간이 가면 꿈에서 본 것같이 잊어버리고 사라지니, 생활하면서 거듭 보고 들어야 <뇌>에 확실히 저장되어 더욱 '실체'를 느끼고 산다.

21. 늙으면 뇌세포가 80, 70, 60% 죽게 되어 금방 봐도 금방 잊어버린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

22.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러하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 고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즉시 행해 버려야 된다.

23. 성자를 사랑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실감하지 못한다. 고로 매일 성자를 생각하고 성자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실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4. <생각>에서 잊으면, 잊게 된다. 고로 매일 생각해라.

25. 매일 생각하고, 매일 찾고, 매일 부르면서 거듭 반복하며 생활화해야 살아 있는 자가 된다.

26.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주도 매일 생각하고 찾고 부르며 생활화하기다.

27. 사람이 가다가 '여기가 끝이다.' 생각하면, 더 안 간다.

28. '땅 끝이 끝이다.' 생각하면, 더 이상 안 간다. '땅 끝이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바다>로 가면, '섬'도 나오고, 또 더 가면 '넓은 땅'이 나온다. <성경 해석>도 그러하다. '더 이상 없다.' 생각하면, 더 연구하지 않는다. 끝까지 다 뒤지고 살피고 가면, 또 있다.

29. 확실히 알기 전에는 헛소리가 많은 것이다.

30. '눈'으로 푹푹히 본 것도, '귀'로 푹푹히 들은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 <내용>도 <모양>도 흐릿해진다. 고로 자주 보여 주고 들려주어라.

31.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하루가 지나 봐라. 어느 정도만 기억나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나느냐.

32. 볼 때만 확실히 보이고, 들을 때만 확실히 들린다.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들을 때만 확실히 들리지,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하다. 그러니 자꾸 <말씀>을 들려주어라. 자꾸 보고 들어야 느낌이 와서 행하게 된다.

33. 근본과 연결된 이야기를 다 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진다. '굵은 가지'만 말해야 째박하다. <설교>도, <잠언>도, <이야기>도, <강의>도 그러하다.

<2014년 5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창조>와 - <관리>와 - <존재>다.
2. '사람'이고, '물건'이고, '만물'이고 만들고 쓰면서 관리해야 제대로 존재한다.
3. '자기 자신'도 '타인'도 만들어 쓰기만 하면, 바로 망가져서 폐인이 되고 병들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한다.
4. '물건'도 만들어서 쓰기만 하면, 바로 망가지고 고장 나서 못 쓴다.
5. <관리>, <수리>, <손질>이다.
6. 사람도 관리, 기계나 물건도 관리, 동물도 관리, 만물도 관리다.
7.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도 사랑만 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병들고, 약해지고, 문제가 생긴다.
8. <관리>는 자세하게 살피면서 100% 완전하게 해야 된다.
9. <관리>, <사랑>, <정성>, <투자>, <갚은 보살핌>이다.
10. '자기 몸'도, '사랑하는 자'도 돈 아깝다고 관리 안 하면, 만 배 손해다. <돈>은 '휴지'와 같다. 휴지 아깝다고 화장실에서 그냥 나오지 않듯, 돈 아깝다고 관리를 안 해 놓으면 안 된다.
11. 어떤 사람은 '자기'를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아깝다고 인색하게 굴다가, 결국 병이 들었다. 그제야 병원에 갔더니 치료비로 3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 돈이면, 평소에 실컷 먹고 입으면서 자기를 관리했을 것이다.
12. '자기가 쓰는 물건'도 철저히 관리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고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
14. 성자는 끝까지 <관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15. 인간의 것은 인간이 관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관리다.
16. 천금같이 귀하게 얻은 것도 처음에는 지나치게 관리를 하다가 점점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잃어버린다. 혹은 망가뜨린다.
17. <소모품>은 '적당하게 관리'하지만, <귀한 것>은 귀한 만큼 '귀하게 관리'하기다. 관리할수록 빛나고, 상상 못 하게 가치를 발휘한다.
18. '한 가지'를 보고 가치 있게 귀히 관리해 주면, '몇 가지'가 더 가치 있게 쓰이게 된다.
19. 관리할수록 여러 가지로 써먹게 되어 유익이다.
20. 관리해야 갈수록 <흑자>가 되고, <맛>을 느끼고, <기쁨>이 온다.
21. <영>만 관리하면 <육>이 배고프고, 병들고, 춥고, 헐벗고 다니게 되어 결과적으로 <영>에게도 치명적인 날이 온다.
22. <활동>하면서 관리, <실천>하면서 관리다.
23. 주와 멀어져서 육성으로 살면, 그때는 <육>을 자제시키고 묶어 놓고 다스리는 관리를 해야 된다.

24. 주와 같은 생각으로 살면, <육>을 묶어 놓고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25. 주 뜻대로 살면, 주가 좋아서 계속 더 뛰고 날면서 살게 해 주시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세상으로 가서 ‘육’도 ‘영’도 망하는 길로 가니 브레이크를 건다.
26. <육성>이 강하면, ‘영’이 좋게 변화되지 않는다.
27. 자기 뜻대로 살면, 주 뜻대로 살도록 관리해야 된다.
28. 자기가 주의 것이 되어 잘못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나 물질을 다스리면서 주 안에서 행하면 된다.
29. 세상에서 행한 것을 주를 떠나서 행했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가 주와 일체 되어 온전히 ‘주의 것’이 됐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이 된다.
30. 섭리사 안에 있어도 주와 일체 되지 않고 행하면, 주의 일을 해도 주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31. 주와 일체 되지 않고 행한 것이 ‘육에 속한 삶’이니,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32. 말씀을 들어 보면 자기가 자기 상태를 잘 아니, 자기가 조절하면서 관리해야 된다.
33.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지도자에게도 관리받아야 된다.
34. 지도자가 관리 안 하면, 자기가 깊이 기도하고, 또 성자와 분체에게 관리받아라.
35. 자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36. <문제>가 정확해야 <답>도 정확하다.

<2014년 5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37. 관리할 때는 ‘완전히 뿌리 뽑는 관리’를 해야 된다.
38. <만족한 관리>를 해라.
39. <만족한 관리>는 생명을 살리고, 기뻐 잔치하게 한다.
40. <시원찮은 관리>, <무방비한 관리>는 문제가 생기고 초상집이 되어 슬피 울게 한다.
41. 신부가 신랑을 만족하게 사랑해 주는 관리를 해야 성자가 보고파 밤중에도 찾아오고, 수시로 찾아오신다.
42. <관리>는 배고플 때 진수성찬 먹듯이 하고, 짝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 미쳐서 해야 된다.
43. <관리>란 무엇이나. ‘생명 연장, 존재 연장’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다.
44. <관리자>는 ‘그 센터의 중심자이며 구원자’다.
45. <관리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선지자, 사도, 사사’다.

4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는 자일수록 성령의 감동을 받고 더욱 생명을 관리한다.
47. 한 생명을 끝까지 관리하고 나니, 그로 인해 <내 소원과 희망>이 이루어졌다.
48. 관리할 때는 <노력>, <희생>, <열심>, <시간>, <타산(打算)>이다.
49. '제때 관리'다. 기회가 지나가면 관리해도 헛수고이고, 제 갈 길 가는 들소를 붙잡는 격과 같아서 배로 힘이 든다.
50. 이성(異性), 세상의 각종 유혹, 물질, 악평자의 말에 빠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51. '사탄 관리'다. 사탄과 싸울 때는 기도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해야 된다. <어린이>라도 성자와 일체 되어 기도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싸우면 이긴다. 하지만 <대장부>라도 성자와 멀면, 사탄과 싸워 이기기 어려워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52. 사탄은 섭리사를 불신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갖은 발악을 하게 하고, 각종 악평자의 말을 듣고 불신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똑같이 악평하며 불신하게 한다. 사탄을 저주하고,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을 꽂아서 먼저 사탄을 없애라. 그리고 악평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해라! <끝>
53. 괴이한 술법, 거짓 술법은 <사탄의 술법>이다. 사탄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어 타락하게 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았다. 자기가 심판받은 사건을 가지고 사명자를 이성으로 누명 씌우고 거짓으로 꾸미며 말한다.
54. 사탄은 '거짓, 증오, 시기, 질투, 서운함의 영물'이다. 고로 사탄은 거짓말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운함을 타는 자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한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선고받았으니, 아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악랄하게 악을 행한다.
55. 사탄의 꾀을 받은 자들은 거의 <서운함, 섭섭함>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책임을 못 한 자들'이요,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자들'이요, '공적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성자와 주가 다 해 줬는데 감사하지 않은 자들'이다.
56. <서운함>을 타고 나가서 '이성 타락한 자들'이 사탄의 몸으로 쓰여 섭리를 악평하며 생명들을 찢는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다.
57. 사탄이 여자를 한 번 끌어다 타락시키면, 목숨 걸고 세 배나 힘써야 다시 끌어올 수 있다.
58. 하루에 '일곱 번 이상' 사탄이 못 오게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며 판생각 못 하게 해야 된다.
59. <말>과 <겉>만 보고 믿고 따르지 말고, <속>까지 다 보고, 기도해서 성자에게 응답받고 행해야 된다.
60. 행악자들과 유혹자들과 악평자들은 '옳은 말'로는 못 꾀니, 100% '거짓말'을 하면서 찢는다. 또한 '콩알'만 한 근거라도 있으면, '축구공'만 하게 불려서 거짓말로 찢는다.
61. <의인의 편>이라면 행악자나 악평자를 불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의 말과 행위를 책망해라.
62. 행악자나 악평자를 불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할수록 '의'가 된다.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63.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도 '말씀'으로 튼튼하게 관리하고, <형제>도 관리해라.
64. 섭리 역사를 따라만 가면 안 된다. 자기가 배우고, 믿고, 말씀의 이념에 꼭 차서 시인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와 구원자를 시인하고, 말씀의 갑주를 입고, 신앙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과 기도와 증거로써 주의 손발로 쓰여야 된다.

65. <남 관리>만 하다가 <자기 관리> 못 해서 지쳐 쓰러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66. <부담되는 관리>, <감각 없는 관리>를 하면, 그 사람의 관리를 안 받으려 한다. 그것도 모르고 쫓아다니면, 그 생명은 숨어서 교회에 다니게 된다.

67. <순리적인 관리>는 '말씀 관리, 기도 관리'이며, '자기가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 주는 관리'다.

68. 생명을 관리할 때는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혼자서 낳은 아기같이 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니, 자기가 부족하면 유능한 자에게 패스해야 된다.

69. 자기가 전도했다고 혼자서 관리하다가 뺏긴 생명들이 많다.

70. 성자와 같이, 선생과 같이 관리다.

71. 잘 가르쳐 주어 자기 스스로 행하도록 해 주는 관리다. 코치해 주며 본이 되는 관리다.

72. <무력>과 <억지 관리>는 오히려 손해다.

73. <성자의 구상>으로 관리다.

74. <관리>는 '생명'이다. 마음·정신·생각을 관리해라. '마음·정신·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다. 여기서 좌우된다.

75. 관리자는 생명들을 철저히 파악해라. 알아야 관리한다.

76. '눈' 떴고 '마음' 떴으면 관리 못 한다.

77. 관리자는 전쟁터에 자기 애인을 내보내듯 철저히 훈련하고 가르치며 무장시켜야 된다. 그래야 '삶의 전쟁터, 신앙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여 살아남는다. <끝>

78.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홍수 때 급물살에 집 무너지듯 '신앙'도, '마음'도, '믿음'도 힘없이 무너진다.

79.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옷을 챙겨 입듯이, 항상 '기본 관리'에 신경 써야 된다.

80.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라.

81. 운전하는 사람은 차를 타면, 앞뒤 좌우 꼭꼭 다 살피고 관리해야 된다. 다른 차가 뛰어드는지 보고, 자기가 운전대를 잘 잡고 있는지 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된다. <신앙 관리, 인생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82. 관리해 주어 그들을 '군사'로 삼고, 그들과 같이 또 생명들을 관리해야 된다.

83. 전도만 하지 말고 먼저 전도된 자들을 관리하면서, 또 계획하고 전도해라.

84. 전도 안 된다고 아무나 막 전도하면, 관리하고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지친다.

85.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생명을 몇 명씩 낳아서 길렀는데,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됐어도 그 귀한 생명 하나 전도 못 하고 늙어서 혈혈단신으로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

86. 기도하며 성삼위께 물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엄청난 투자를 하여 <우주>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시어, 엄청난 생명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깨져 구원받은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구 세상에 구원역사를 계속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농부나 과수원지기가 생각만큼 농사가 안 됐어도 그나마도 안 하면 ‘밭’을 버리고 ‘과수원’을 버리니, 최선을 다해 정한 때까지 해야 된다. 기대대로는 안 됐으나, 그나마도 안 하면 아예 끝난다. 그러나 하면, 한 만큼은 되지 않느냐. 나 여호와도 ‘구원받은 생명들’을 크게 보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며 천국에 거두어들인다.” 하셨다.

87. 수천 개의 과일이 열렸다가 떨어져서 썩어도 열 개라도 빛나는 과일을 거두었다면, 전체를 얻은 것같이 귀히 보고 만족하는 농부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

88. 수천 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으로 갔으나, 그중의 몇 명이 구원받았다면, 그 몇 명이 수천 명을 대신하여 성삼위를 영원히 기쁘게 하기에 그들로 만족하신다.

89. 한 황태자가 궁녀들을 뽑으려고, 농부로 변장하고 한 시골에 갔다. 그리고 그 마을의 처녀들을 살폈다. 500명 중에서 15명만 뽑아서 궁으로 데리고 왔다. 나중에 그 마을의 처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니, 다 늙어서 할머니처럼 되었고 고생만 하고 있었다. 뽑힌 15명의 처녀들은 계속해서 황태자를 기쁘게 해 주었다. 그리고 궁궐은 뽑힌 그 15명의 처녀들이 켜다. 500명분을 15명이 받고 누리니 33배씩 누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농부가 황태자라는 것을 안 처녀들은 땅을 치고, 혀를 깨물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했다. 구원자를 못 알아보고 자기 갈 길 가다가 지옥에 간 자들이 이와 같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열매’만 거둬들이신다. 그리고 수에 상관없이 거둬들이는 영혼을 보고 영원히 기뻐하고 만족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 이 가치와 기쁨을 진정 깨닫고 행하는 자는 휴거된다.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90. <남 관리>는 잘해도 <자기 관리>는 잘 못 한다.

91. 인생은 ‘자기’로부터 시작한다.

92.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자기’를 관리해라.

93. <자기 관리> 안 하면 가다가 쓰러진다.

94. 자기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관리해라.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영과 육을 다 관리해라.

95. <자기 관리> 못 하면, 갈 길을 가다가 도중하차하게 된다.

96. 지금껏 투자하여 공들여서 얻은 것들을 끝까지 가치 있게 쓰려면, 매일 ‘자기’를 관리해라.

97. 무엇이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뺏긴다. 한 번 뺏겨서 남의 손에 가면, 뺏은 자가 아예 주지를 않는다. 그러니 아예 <관리>로 늦 성벽을 쌓아야 된다.

98. <건강관리> 소홀히 하면, 그 귀한 몸을 귀히 쓰지 못한다.

99. 지갑에 있는 돈을 쓰기만 하면, 결국 빈 지갑이 되어 물건을 사려고 골라 놓고 쑥스럽게 그냥 나와야 된다. 이와 같이 몸도 관리는 안 하고 쓰기만 하면, 나중에 할 일을 두고 그냥 물러나야 된다. 몸을 쓰는 만큼 관리해라.

100. 미련한 자들은 ‘세상의 흔한 것들’만 귀히 보고, ‘자기’를 귀히 볼 줄 모른다.

101. ‘자기’를 귀히 못 보면, 자기를 성공시키지 못한다.

102. '자기'를 귀히 보아라. 귀히 볼수록 자기에 대해 귀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103. 자기가 귀한 것을 모르면, 성자께 물어보고 감정해 보아라.

104. '자기'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자기'를 매일 신경 쓰고, 말씀으로 성자와 주와 같이 자기를 관리하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과, 핍박하는 자들과, 무시하는 자들과, 알아주지 않고 막 대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감을 잃지 말고, 세상 명예, 권세, 사랑, 물질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라.

105.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106. 매일 기도하고 자기를 신경 쓰면서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107. 행여 자기 관리를 안 하다가 마치 밤길 걷다가 등불 꺼지듯 불이 꺼졌으면, 다시 기도하고 성자와 주를 찾으며 즉시 불을 붙여라.

108. <충분한 관리>를 해야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다.

109. <자기를 변화시키는 관리>를 해야 그 주관권의 해됨을 벗어나고,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것을 벗어나 안전하게 된다.

110. <신앙>은 '변화의 역사'이며 '구원의 역사'다.

111. 자기가 더 잘되는 맛으로 자기를 관리하며 사는 것이다.

112. 어떤 사람은 '나무'를 기르고 '꽃'을 가꾸는 데 취미를 붙이고 기뻐하며 사는데, '나무와 꽃'보다 1억만 배 더 가치 있는 '자기 몸, 자기 영'은 왜 귀히 관리하며 살지 못하느냐.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살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 아라.

113. '자기 육'은 <이 세상>에서 살아 봤다. '자기 영'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하니, 그 소망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소망을 위해 '네 인생'과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라. 막연한 천국이 아니다. <이 세상>은 <천국>에 비하면 '하나의 그림자' 같고, 아무리 열심히 행하며 살았어도 '결국 때가 되면 끝나 버리는 허무한 세상'이다. 그러나 영의 세계 <천국>은 사랑과 기쁨이 날마다 불탄다.

114. <천국>은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희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 매일 연속되듯 기쁨이 충만한 세계이며, 영이 실존체로서 먹고, 입고, 즐기고, 마치 지상의 백초처럼 하늘 공중을 날아다니며 산다. 그곳에는 피곤함도, 불안함도, 슬픔도, 걱정도, 고통도, 악인도, 악평자도, 노동도 없다. 천국에서 자기 사명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희락'이 용광로같이 펄펄 끓어 치솟는다. 육신이 죽어서 영이 영계에 가기 전에 깊이 기도함으로 <천국>을 체험하고 살면, 땅에서 살면서도 희망에 차서 살 것이다.

115. 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육과 영을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변화시키며 살아야 하늘의 기쁨이 치솟아 살게 된다.

116. '태아'가 <엄마 태 안>에서 각 지체를 100% 갖추고서 세상에 태어나야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영'도 <지구>라는 태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발육하여 '하늘나라 형체'로 갖춰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신앙의 불구자'는 천국에 못 간다.

117.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를 100% 온전히 만들 수 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관리 책임자'다.

118. 몰라서 못 만들고, 관리 안 해서 못 만들고, 남만 만들다가 자기를 관리 못 해서 못 만들고, 능력이 남아돌아도 자기가 안 만들어서 못 만든다.

119. 관리하지 않은 땅은 삭막한 잡초 땅이 되듯, 세상에서 자기 욕을 통해 관리받지 못한 영은 지옥의 세계에서 쓰이게 된다.

120. <생명의 말씀>을 행하면서 관리하면, 삶이 ‘포도원’이 되고, ‘과수원’도 되고, ‘황금벌판’도 된다.

121. <철, 돌, 흙>도 그냥 그대로 놓고 쓰면, 그 존재로만 쓰게 된다. 변화시켜서 쓰면 비행기, 자동차, 집, 건물, 빌딩, 각종 조각품 등 수만 가지로 쓰게 된다. <자기 인생>도 그대로 쓰면 평범한 인생으로 쓰인다.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고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로 써라.

122. 자기를 변화시킨 자는 ‘차원’ 높여 살고 ‘가치’ 있게 산다.

123. 세상에서 자기 욕을 통해 자기 영을 변화시킨 그 차원에 따라서 자기 영이 거할 곳이 결정된다.

124. 성자는 ‘욕과 혼과 영’이 변화된 상태를 보고 대해 주신다.

<2014년 5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25.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고 차를 관리하듯, <자기>도 <생명>도 몸짝 붙여서 관리해야 된다.

126. 생명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구원해 놓고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사망권으로 가게 된다.

127. 생명 관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필요할 때마다 관리해야 된다. 그러다 다 크면 관리를 안 받으려 한다.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게 해 줘야 된다.

128. 남을 관리하면서 관리에 대해 깨닫고, 보이지 않는 ‘자기 영’도 관리해야 된다.

129. 타인의 관리를 받기만 기다리지 말고, 자기가 배고픈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130. 연구하면서 관리다.

131. 주 뜻에 맞는 관리다. 주를 알리면서 관리다. 그래야 주가 알고, 때가 되면 합당하게 쓴다.

132. 자기 마음에 맞게 관리하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주는 주의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며 심판한다.

133. 홍수가 나기 전에, 비바람이 치기 전에,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피하듯, 늘 <사전 관리>를 해야 된다.

134. 긴장하고, 근신하고, 서두르고, 재촉하는 관리다.

135. 태만하고 안일한 관리는 <실패의 관리>다.

136. 관리할 때 아예 완전하게 해야 된다.

137. 높은 데다 집을 짓고 사는 자들을 보고 “왜 저렇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사느냐.” 하며, 편하고 안일하게 낮은 데다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말아라. 미리 알고 높은 데 집을 지어라. 홍수가 나면, 물이 산 중턱까지 찬다. <끝>

138. 지난날의 환난을 상기하며, 늘 관리다.

139. 여건이 안 돼도 때를 놓치지 말고 관리해라.

140. 100% 완전하게 관리다. 목욕탕에서 빠져 죽을까 염려되면 가지 말고, 차라리 접시 물에서 목욕해라.

141. <사정거리>를 두고 살아라. 산짐승이 포수의 사정거리를 벗어나 떨어져 있으면, 사냥당하지 않는다. 아무리 총을 쏘도 총탄이 날아오다 만다. 그러니 사탄이나, 이성이나, 악한 자나, 사기 치는 자들로부터 떨어져 <사정거리>를 두고 살아야 안 당한다. 너무 가까우면 ‘손’에 잡히고, ‘올무’에 잡히고, ‘칼’에 잡히고, ‘총’에 잡힌다.

142. 피해야 피해를 안 본다.

143. 친구가 저기 갔다가 몸 뺏겼다고 하니까, 어디인지 확인하러 갔다가 또 몸을 뺏겼다. 아예 가지 말게 관리해 줘야 된다.

144. <주의 품을 벗어난 삶>은 ‘사망의 땅에서 사는 삶’이다.

145. 악한 자, 꾀는 자의 헛된 이론은 아예 한·마·디·도! 듣지 않게 관리해라. 그 길은 ‘악’이 지나가는 운명의 길이라서 ‘한 마디’만 들어도 악의 길로 간다.

146. 야수들은 동물들의 새끼가 약하니 그 새끼들을 사냥하러 다닌다. 그 야수들에게서 민감하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동물들을 보면서, <생명 관리>를 배우고 관리해라.

147. 아예 <강자>가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사탄과 악인’을 멀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자로 만들어라. 그러면 평생 ‘사탄과 악인’을 ‘적’으로 보고 대하니, 마음이 놓인다.

148. 치타도 표범도 새끼 때는 강한 야수들에게 잡아먹힌다. 그러나 크면, 오히려 사냥하러 다닌다.

149. 전쟁터에서 ‘적’을 가르쳐 알게 하듯이, ‘대적하는 자들’을 가르쳐 주어 항상 그들을 경계하게 해라.

150. <관리>는 ‘멘토링’이다.

151. 관리 안 하면, 그 생명이 문제를 일으켜 ‘적’이 되기까지 한다.

152. 새끼 고양이를 관리 안 해서 <보물단지>를 깨 버렸다. 주인은 ‘그렇다고 고양이를 죽이면 뭐하냐. 쥐라도 잡으라고 두는 것이 낫다.’ 하고, 그냥 뒀다. 그 후에 새끼 고양이가 커서 주인의 심정을 알고, 관광객이 놀다 간 잔디밭에서 <비싼 보석>을 물고 왔다.

153. 관리를 잘해야 과일나무에 열매 100개가 열 것인데, 500개를 열게 된다.

154. 매일 관리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눈, 마음의 눈’을 떠서 보고, ‘육의 눈’에 보이는 것까지 자세히 보아라. 그래야 주의 손발이 되어 관리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된다.

155. 월명동 동산의 야생 과일나무들도 관리하니,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숲속에 있으니 햇빛을 못 받아서 그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었다. 그곳의 잡초를 제거하여 햇빛이 들어오게 해 주니, ‘산포도, 산머루, 다래, 으름 열매’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사연을 이야기해 줄까요? 처음에 <으름 나무>에 ‘으름’이 안 열린다고, 선생은 이 나무를 베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성자는 “네가 해 줄 것을 해 주고, 그때도 열매를 안 열면 심판해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할까요?” 했더니, 성자는 “잡초를 제거해 줘.” 하셨습니다. 으름 나무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니, 나무가 햇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꽃이 피었고, 이내 열매가 열렸습니다. 선생은 그 으름 열매를 따 먹으며 좋아했습니다. 이때 성자는 “열매만 따 먹지 말고, 생명을 이같이 관리하라는 나의 계시를 깨달아라.” 하셨습니다. 생명들도 잡초 같은 마음을 제

거해 주어 ‘성자 태양빛’이 들게 하니, ‘신앙의 열매, 영의 열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감람산 길 양쪽에 <철쭉>이 있는데 ‘꽃’이 안 피어서 “아깝다.” 했습니다. 베 버리려다가 안 베고, 주변의 ‘풀’을 깎아 주고 ‘나무의 그늘’을 제거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꽃이 피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진 생명들을 앞으로 끌어내어 ‘성자 빛, 분체 빛’이 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꽃’이 핍니다. ‘관리’입니다. <사람>이고 <식물>이고 그들이 지면 안 됩니다.

<2014년 5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몸이 굳은 사람’은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들어서 그 이상은 움직이지 못한다. 몸을 풀면 더 움직일 수 있는데, <자기 체질과 습관>을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고 만다.
2. ‘뇌가 굳은 사람’은 그 한계선까지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들었다. 뇌를 풀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뇌 체질>을 <자기 생각의 한계, 지능의 한계, 실력의 한계>로 보고 산다.
3. <육신>도 행하는 대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듯, <뇌와 생각>도 생각하는 대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다.
4. <뇌>와 <생각>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든 것들을 풀고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행하면, 그 ‘체질’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된다.
5. 사람은 ‘체질’이 되면, 그 이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자기 몸 체질, 생각 체질>을 <자기 실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로 보지 말아라.
6.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굳은 뇌와 생각’을 풀고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7. <굳은 체질>을 가지고 <자기 한계>라고 생각하며 “안 된다. 힘들다.” 하지 말고, 자꾸 ‘몸과 뇌와 생각’을 풀어 가면서 <몸 체질, 뇌 체질, 생각 체질>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라.
8. 체질을 바꿀 때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됐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때 다음 단계로 차원 높여 행하는 것이다.
9.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몸>과 <뇌>와 <생각>에 이상이 없어야 된다. 무리하게 한 번에 하지 말고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야 된다.
10. 안 된다는 생각, 포기하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다. <뇌와 생각>이 그쪽으로 굳어 버려 ‘체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11. ‘매일 행하기. 지속적으로 생각하기. 체질로 만들어서 행하기.’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그와 함께 행하기.’다.
12. <뇌>는 ‘그릇’과 같다. 고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뇌 체질, 생각 체질’이 결정된다.
13. <뇌 체질, 생각 체질>을 만든 대로 ‘그릇의 크기’가 결정된다.
14. 성자의 말씀을 듣고, 네 <뇌>에 ‘성자의 생각’을 담고 행해라. 그러면 ‘하늘 체질’이 된다.
15.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듯이, 사람은 체질을 만든 만큼만 감당하고 행한다. 고로 성자는 ‘체질’대로만 역사하신다.
16. 열심히 하다가 마는 자, 며칠, 몇 달만 하고 끝까지 안 하는 자, 누가 끌어 주면 잠깐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못 하는 자, 자꾸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이다.

17.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결심하고, 맹세해도 <몸, 뇌, 생각>이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들면, 바로 또 힘들어지고 열이 식어 버린다.
18. 은혜 받고 성령 받았어도 자기가 생활 가운데 감당하며 자동적으로 행하도록 ‘체질’로 만들어야 된다. <몸, 뇌, 생각>이 ‘체질’이 돼야 모든 것을 감당하며 스스로 행하며 생활하게 된다.
19. 체질이 됐다는 것은 자동기계처럼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이다.
20. <말씀 실천>도, <성자 사랑 생활>도 ‘생활 체질’이 돼야 귀찮아하지 않고 좋아서 뛰어다니며 하게 된다. 고로 휴거된다.
21. <사명>도 체질이 돼야 감당할 수 있고, <자기 특기>도 체질이 돼야 빛을 발하며 써먹을 수 있다.
22.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체질, 자기 생각, 자기 취향’대로 행하며 만족하며 산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체질과 생각과 취향’으로 고쳐 놓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하는 것이 <생활>이 되어 힘들지 않게 하게 된다.
23. <자기 실력의 한계>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아니다. <몸 체질, 뇌 체질, 생각 체질>이 굳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24. <자기 체질,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속에 갇혀서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서 점진적으로 <굳은 몸과 뇌와 생각>을 풀어 가면서 더 높은 차원에 올라라.
25.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고 부르고 찾으며, 매일 그 뜻대로 행하기다.
26. <체질>이 되어 버린 ‘잘못된 성격, 혈기, 거친 말투, 잘못된 ‘행실’을 모두 고쳐라! 고쳐야 휴거된다.
27. 성격도, 습관도, 체질도 ‘낮은 단계의 것’을 고친 자들은 많은데, ‘높은 단계의 것’을 고친 자는 드물다. 고로 <휴거 300선>이 드물다.
28. 자기 성격, 자기 체질, 자기 생각, 자기 취향대로 먹고 마시고 행하며 흥분되어 살아간다. <성자의 체질>로 만들어 성자와 같이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살아라.
29. <마음, 생각, 성격>이 ‘권세’이며 ‘세력’이다.
30. <성격, 마음, 생각, 성품>에 따라서 ‘사명’을 받고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된다. 고로 <마음과 성품의 값>은 수백억, 수천억, 수십조의 돈으로도 계산이 안 된다.
31. 성자는 <성격, 성품, 생각>을 보고 ‘신부’로 택하신다.
32. <성격, 성품, 생각, 마음>에 따라서 ‘혼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거나, 혹은 ‘지옥 쪽 형체’로 변화된다.
33. <성격>이 좋으면, 하는 것마다 예쁘고 멋있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34. <성격, 체질, 혼, 영>이 얼마나 변화됐는지에 따라서 휴거 100선 200선 - 300선이 구분된다.
35. 자기 성격과 성품을 고치고, 자기 체질을 하늘 체질로 만들어 사는 자들은 <사랑>도, <사명>도, <축복>도 그만큼 크게 받는다.

<2014년 5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육’도 ‘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육의 행위’를 통해 ‘영’을 변화시켜 ‘영’이 ‘재창조’된다.
3. ‘과일’은 ‘과일 나무’라는 껍데기를 통해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익어 간다. ‘영’도 ‘육신’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육의 행위’를 빨아들이며 변화되고 성장한다.
4. 부지런히 행하여 <육신 세계 육의 고통>도 벗어나고, <영원한 세계 영혼의 고통>도 벗어나라.
5. 조각가가 돌 조각을 하는 데에서 ‘돌의 겉모양’은 안 본다. 어차피 ‘겉’은 깎아 내야 되기 때문이다. 오직 ‘돌의 질’을 본다. 그리고 다 만든 후에 ‘잘 만들었는지 그 형상’을 본다. 사람도 그러하다. 성자는 휴거시키는 데에서 ‘육의 겉 모습’은 안 본다. ‘육’은 이 세상에서 ‘자기 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죽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의 질’을 본다. ‘영’을 본다. 그리고 다 만든 후에는 ‘영을 잘 만들었는지 그 형체’를 본다.
6. 휴거시킬 자들의 <육>은 ‘돌 조각을 할 때의 돌의 겉모양’과 같다. ‘돌의 겉 표면’은 조각을 하면서 다 깎아내 버린다. 이와 같이 육을 통해 <영>이 만들어지면, <육>은 이 세상에서 생이 다할 때까지 뒹다가 버리고,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진 영’만 천국으로 휴거시킨다.
7.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려면, 한없이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니,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나게 변화된다.
8. <육신>이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와 분체와 사랑 일체 되어 부지런히 행하여 <네 영>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라! <육>은 육신 세상에서 만들기 때문에 한계 이상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은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9. ‘선(善)에 오른 자’에게만 1등을 준다.
10. ‘말씀을 지킨 자’에게만 1등을 준다.
11. 1등은 <영의 차원>이고, 2등은 <혼의 차원>이고, 3등은 <육의 차원>이다.
12. ‘최선을 다한 자’가 1등이다.
13. 1등만 <천국>에 간다. 2등은 <낙원>, 3등은 <선영계>다.
14. 세상에서 1등은 한두 명이지만, 신양 세계에서 1등은 행하는 대로 나온다. 각자 개성대로 1등이다.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개성적 영광>을 돌려라.
2. 거울에는 ‘불’을 더 지피고 가까이해야 되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더욱 가까이해야 된다.
3. 우리가 인생을 살도록 천지를 창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만족하고 좋아하시랴. 기도하고 간구하니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 의 생각>과 같아야 만족하다.” 하셨다.

4. 사랑하는 자라도 <자기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5. <생각>이 같지 않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6. <생각>이 같은 자만이 같이 살게 되고, 동행하게 된다.
7.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니, 하나님과 동등권 위치에 있는 것이다.
8.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같으면,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신이 되어 사는 것이다.
9. 사랑하여 결혼했어도 생각이 같지 않으면, 결국 같이 못 살고 헤어지게 된다.
10. <생각>이 같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떠난 삶을 사는 자'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생각>이 같으려면, '그 뜻과 목적'을 알고, 자기도 좋아서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같이 행해야 된다.
12.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늘 다르다고 왜 말씀했는지, 왜 다른지 수시로 확인하고 배워야 된다.
13. 자기 생각이 <주의 생각>과 같은지, 늘 확인해야 된다.
14. <주의 생각>과 같아야 주와 같이 살면서 그와 함께 시대의 일을 행한다.
15. <생각>이 같도록 교정하고 맞춰라.
16. <생각>이 같도록 늘 깊은 기도를 해라.
17. 하나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행하는 자는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열매 없는 나무에 퇴비하는 격과 같다.
18.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과 '악'이 쪼개져 있다.
19. 하나님은 항상 '선'과 '악'을 쪼개서 역사하신다.
20. '선'과 '악'을 분별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선'으로 보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악'으로 보고 분별하셨다. 시대마다 그같이 하셨다.
21. '악'에게는 기회를 주어 회개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선'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펴게 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
22.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과 '악'이 쪼개지게 하신다.
23. '선'이 '악'으로부터 고통을 받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면 '선'과 '악'을 쪼개 주신다.
24. 때가 되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 상징국인 이집트에서 쪼개 내셨다.
25. 쪼개 내야 '빛'이 난다.
26. <금>이나 <각종 보석>도 먼저는 '돌'에서 쪼개 내어 '잡석'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연마하여 만들어야 <보석>이 되

어 더욱 빛나고 가치 있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고, <의인>도 그러하다.

27.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살았던 <이집트>에서 벗어나 <신광야>로 나왔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쪼개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가기 위한 노정을 거쳤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잠깐 고생 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다. 고로 하나님은 또 '선'과 '악'을 쪼개어 구분하시고, '선'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

28. 하나님 앞에 '적'이 되면, '악'으로 보고 쪼개 내신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적'이 될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악평하는 자가 '적'이다.

29.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악'으로 보고 쪼개 내셨다.

30. 가인과 아벨도 쪼개셨다. 가인은 '악'으로, 아벨은 '선'으로 쪼개 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폄했다.

31.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선악을 분립하여 쪼개는 심판'이었다.

32. '악'은 결국 멸망받는다. 남은 자들이 적어도 오직 '선'만이 하나님을 모시고 구원의 뜻을 펴 나갔다.

33.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 의'로 보고 쪼개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34. 어느 시대든지 <중심자>는 '그 시대 온 세계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조건'을 세운다. 그가 잘하면 <전체>가 '축복'이고, 그가 못하면 <전체>가 '심판'을 받기도 한다.

35. <중심자>가 잘해도 <백성>이 잘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쪼개 내는 심판'을 하신다.

36. <중심자, 시대 사명자>는 '그 시대 그 민족과 세계의 대표'다. 하나님은 <그 민족 전체>에게 말씀하며 행하지 않고, <그 시대 사명자>와 통하며 그에게 말씀하며 행하신다.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37. 선악을 쪼개지 않으면, 악 속에 사탄이 끼어 있다.

38. 제물도 쪼개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안 받으신다.

39. 하늘 편인 '선'은 '악'과 같이 있으면 못 건진다. 고로 고생하더라도 '선'과 '악'을 쪼개 내어 '선'은 선의 길로 가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40. 요셉도 배다른 형들과 같이 있을 때, 늘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며 괴롭힘을 당했다. 고로 하나님은 요셉이 고생하더라도 형들에게서 쪼개 내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41. <의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 '조건'은 곧 첫 번째로 '악인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의의 조건'이다. 이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42. <의인>이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는 <악 편>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된다.

43.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44. <조건을 세우는 기간>은 <값을 지불하는 기간>이다. 고로 이 기간은 고생돼도 '희망의 기간'이다.

45. 악 편이 행한 대로 <회개의 조건>을 세워야 하고, 그 시대가 행한 대로 <조건>을 세워야 된다.

46. ‘시대 사명자’도 조건을 세워야 하고, ‘따르는 자들 중의 표상자’도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게 된다.
47. 그 시대가 주를 미워하면 ‘따르는 자들의 표상’은 <주를 사랑하는 조건>을 세워야 하고, 그 시대가 주를 불신하면 ‘따르는 자들의 표상’은 <주를 절대 믿고 따르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섭리사에서도 ‘보낸 자’ 앞에 이와 같은 조건을 세운 자가 나왔기에 성자가 보낸 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악 편>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되었다.
48.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만드는 조건>과 <물에 들어가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고기를 잡는다.
49. 너는 ‘무슨 조건’을 세우고 있느냐.
50. 기도하면서 성자에게 물어서 알고, 자기 행위를 보고 알아라.
51. 요셉과 열한 형제들은 한 형제였다. 이들은 ‘아버지’는 같으나 ‘배(어머니)’가 달라서, 요셉은 형들에게 그리도 미움을 받았다. 고로 하나님은 열한 형제들과 요셉을 쪼개 내어 요셉을 그들의 미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요셉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 가서 또 누명을 써 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또 선과 악을 쪼개어 결국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52. 종교에서도 <구(舊)역사>는 <새 역사>를 그리도 미워한다. <구역사>와 <새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같으나, 삼위가 보낸 ‘구원자’가 다르다. <구역사>는 ‘요셉의 배다른 형들과 같은 입장’이고, <새 역사>는 ‘요셉과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새 역사>는 <구역사>의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새 역사>는 ‘요셉의 노정’을 걸어간다.
53. <시대의 조건을 세우는 자>는 ‘자기 죄’ 때문에 조건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죄’ 때문이다. 고로 그는 누명을 쓰고 억울함을 당하며 ‘그 시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 된다. <죄 없는 자>가 ‘전체를 대신해 조건을 세울 자’가 된다. 죄가 있으면, 자기 죄로 인해 조건을 세우며 탕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54. <건물 낙찰>은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깨끗한 자에게 해당된다.
55. <조건을 세운 자>가 ‘주인’이 된다.
56. <산의 나무>도 ‘조건을 세운 자의 것’이 된다.
57. 월명동의 모든 나무들도 ‘조건’을 세우고 캐다 심었다.
58. <하나님의 지상의 선(善)의 역사>, 곧 <새 역사>는 ‘시대 조건을 세운 자의 것’이다.
59. <조건을 많이 세운 자>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간다.
60. 악인은 악하게 조건을 세우기 때문에, 조건을 세워서 얻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61.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을 쪼개셨다.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새 말씀>을 주시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자녀’로, ‘안 믿고 안 따라오는 자들은 종’으로 쪼개셨다. - <신약역사>는 실상 ‘선악 분립 역사’, 곧 ‘선과 악을 쪼개 내는 역사’였다.
62. <성약>과 <신약>도 쪼개셨다. 성자가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성약의 새 말씀>을 주시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신부’로, ‘안 믿고 안 따라오는 자들은 자녀’로 쪼개셨다.
63. 새 역사, 새 말씀을 제일 먼저 믿고 따라온 자를 ‘첫 번째로 부활된 신부’라고 한다.

64. 자기 마음속에서 ‘선’과 ‘악’을 쪼개 내라.
65. 자기 몸과 마음에 ‘선’과 ‘악’이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 ‘선’이 고통을 받아 <선의 역사>를 못 편다.
66. 자기 마음속에서 ‘악’을 쪼개 내려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죄’와 함께 ‘사탄’도 쪼개져 나간다.
67. ‘비(非)진리’를 쪼개 내고, ‘미움·시기·질투·나태·태만·불순종·교만·무지·감사하지 않음’을 모두 쪼개 내라. <금>에서 ‘잡석과 잡철’을 제거하면 <순금>만 남듯이, 이것들을 쪼개 내면 <선>만 남아져 <의인>이 된다.
68. ‘악’을 제거하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자>가 오셔서 잔치하게 된다.
69.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름’을 주시고, 또 ‘이름의 뜻’을 주시고, 그 이름같이 쓰이게 하셨다.
7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쪼개는 역사’를 하셨다.
71. ‘쪼개는 이름’은 ‘하늘 상징’이다.
72. 고로, 쪼개는 이름이 가고 쪼개는 사람이 가면 선과 악이 쪼개지고 역사가 쪼개진다.
73. 쪼개야 존재한다. 물, 땅, 산, 들, 돌, 나무, 동물, 식물을 모두 쪼개 놔야 번성하고 창대하게 된다.
74. 쪼개서 섭리하여라. 쪼개서 말해 주고, 쪼개서 대해 줘라.

<2014년 5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75. <육체>에서 ‘선과 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선과 악’이 발생한다. 그 마음에 따라 육이 ‘선’, 혹은 ‘악’을 행하여, 육도 ‘선인’, 혹은 ‘악인’ 취급을 받게 된다.
76.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선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선하게 되도록 ‘힘’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77.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행하면 ‘선’이 된다.
78. 자기를 ‘선’으로 만들면, ‘악’으로 가지 않게 된다.
79. 매일 선악을 구분하고 살아라.
80. 인간은 <마음>으로 살아간다. <마음>이 악해서 악하게 살고, <마음>이 선해서 선하게 산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몰라서 선하게 못 사는 것이다. 고로 매일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81. 인간이 ‘자기 생각’을 못 버리면,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82. <성자와 그 육의 생각>으로 살아야 ‘선과 악’이 쪼개져 선에서 버림받지 않게 된다.
83. <성자의 생각>과 달라서 ‘악’이 되는 것이고, <성자의 생각>과 같아서 ‘선’이 되는 것이다.
84. <성자의 생각>과 다른 자는 ‘사망의 별판’을 헤매고 산다.

85. <성자와 그 육의 생각>과 같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니, ‘문제’를 일으키고, ‘물질 손해’를 보고, ‘각종 고통’을 받게 된 것이다.
86. 사탄은 ‘이성’으로 꾀다 안 되면, 기어이 ‘다른 것’으로 꾀고 유혹하고 방해하여 잡고 만다.
87. ‘자기 생각’으로 해 놓고 방축(防築)이 터지듯 문제가 터지면, 그제야 주께 고하며 난리를 피운다.
88.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89. ‘자기 육성’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행하게 되어, 앞날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90. 돌 조각가나 나무 조각가는 돌과 나무를 정으로 수십만 번 찍어 낸다. 필요한 부분만 남았을 때, 비로소 <조각>이 된다.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모순,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죄, 불의, 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계속해서 쪼개 내고 온전한 것만 남았을 때, 비로소 ‘휴거의 영’이 된다.
91. ‘자기 마음’을 늘 살피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심판하고 쪼개 내신다.
92. <물그릇>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로 인해 물도 더러워진다. 이와 같이 <마음 그릇>에 찌꺼기가 있으면, 그 찌꺼기로 인해 마음 전체가 더러워진다. 마음 바닥의 찌꺼기를 쪼개 내어 깨끗하게 해라.
93. 마음 바닥의 찌꺼기가 ‘풍랑’을 일으키게 한다.
94. <선>과 <빛>만이 성자와 하나 된다.
95. <마음>이 면도날같이 날카롭고, <말과 행동>이 거친 돌같이 거칠면, 미인이라도 누가 좋아하겠느냐.
96. 외모보다 <마음>이다. 성자는 <마음> 보고 쓰신다.
97. ‘마음이 좋은 자’를 보고, 배우고 고쳐라. 그러고 나서 써라.
98. 거친 돌을 갈아서 매끈하게 만들듯이, <네 마음>도 매끄럽게 만들어서 써라.
99. 거친 돌을 빨랫돌같이 매끄럽게 만들어 거기에 옷을 빨듯이, <네 마음>을 매끄럽게 만들어 ‘네 마음과 행실’을 깨끗이 하여라.
100. 네 마음에서 ‘악’을 쪼개 내고, ‘죄’를 쪼개 내고, ‘불의’를 쪼개 내어 ‘선한 마음과 행실’로 살아라. 이것이 <마음 관리법>이다.
101. <진실한 사랑>이다.
102. 누가 자존심을 건드려도, 무시해도 양털같이 부들부들하여라.
103. 고무풍선은 아무리 얼굴에 문질러도 안 찢는다. 어린아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시해 봐라. 혈기를 내고 싸우다가도, 웃으면서 윈크하고 좋아한다. 마음속의 거친 것들은 다 쪼개 내고, 어린아이 같은 성격과 성품을 가져라.
104. <마음>은 사람끼리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도 고치지만, 근본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고치는 것이다.
105. <천국>에는 ‘악’이 모래알만큼도 없다. 고로 ‘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아예 천국에 못 간다.

106. 잡초 뽑듯, 매일 네 마음속에서 ‘악’을 뽑아 없애라.

107. 휴거 200선부터는 ‘마음, 성격, 성품’을 완전히 고쳤는지 본다.

<2014년 5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08. <육신 휴거> 후에 <영 휴거>다.

109. 땅에서 육신 쓰고 성자와 주와 함께 자기를 만들었어도 완전하지 못하다. 육신은 땅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110. 땅에서 육신이 자기 영과 함께 성자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자기를 만들었어도 ‘땅에서 완전’이지, ‘하늘나라에서 완전’이 아니다.

111. 자기를 완전하게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마지막으로 손을 대야 한다. 이것이 <영 휴거>다.

112. 영이 천국으로 휴거돼야 ‘완전체’가 된다.

113. 지금은 <영 휴거>가 진행 중이다.

114. 땅에서 이루는 <육신 휴거>는 땅에서 구원자를 맞고 이루는 휴거로서,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전에 연애하는 것과 같다.

115. 천국으로 가는 <영 휴거>는 천사장이 나팔 불 때 성자 본체가 ‘휴거의 영’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서,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애를 마치고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다.

116. <휴거>는 ‘삼위의 온전한 사랑체로 변화되는 것’이다.

117.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휴거시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영원히 살 것이니, 아예 ‘악한 마음’을 모두 쫓아내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118. ‘신발’도 안 맞으면 못 신고 ‘옷’도 안 맞으면 못 입듯이, 성자와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119. 성자는 <마음>을 보고 ‘신부’로 택하신다.

120. 네 마음에서 ‘악, 죄, 불의, 이성의 생각, 나쁜 마음’을 모두 쫓아내라. 그래야 성자와 같이 산다.

121. <마음>과 <몸>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자기 마음과 성격을 100% 안 고치면, 고친 데까지만 성자와 동행하게 된다.

122. 누가 너를 건드려 화가 나게 해도 ‘시험’이라 생각하고 이겨라. 네 마음을 고치면, 누가 아무리 건드려도 마음이 양털같이 부드러워진다. 누가 <성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가 성자와 같이 살 자다.

123. 임금이 <농촌>에 가면 ‘농부 옷’을 입고 나타나고, <선비 마을>에 가면 ‘선비 옷’을 입고 나타나고, <과수원>에 가면 ‘과수원지기 옷’을 입고 나타나고, <바다>에 가면 ‘고깃배’를 타고 나타난다. ‘사람들이 사는 차원’에 따라 나타난다.

1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에 따라 나타나신다. <낮>이면 ‘해’로 나타나시고, <밤>이면 ‘달과 별’로 나타나신

다.

125. <성자>는 ‘분체’를 통해 나타나 말씀하시고 뜻을 펴신다.

126. (성자) 너희가 휴거되고 싶으면 네 마음에서 ‘악’을 정리하고, 그 <착한 마음>에 ‘사랑’을 가득히 채워서 ‘사랑 빛’을 찬란하게 하여라.

127. (성자) 매일 나 성자와 같은 생각으로 살기다. 같은 질은 싸우지 않고 하나 된다. 기름과 기름, 물과 물, 불과 불이다. 선과 선이다. 같은 진리, 같은 이론, 같은 이념, 같은 사상, 같은 마음, 같은 행실이다.

128. <구역사>는 ‘새 역사의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꿀’과 하나 되지 않는 ‘꽃가루’다. 그들은 ‘꽃가루’를 먹으면서 ‘꿀’을 먹었다고 한다.

129. <구역사>는 더듬고 살면서 큰소리치고, <새 역사>는 말씀을 취하고 행하고 살면서도 꿀 먹은 병어리가 되어 조용히 뜻을 펴 나간다. 구시대 사람들과 시대 악평자들에게 욕을 먹고 악평을 얻어먹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찬란하게 펼쳐진다.

130. 꿀을 먹었으니, 벌에 쏘여도 손해는 아니다. 벌에 쏘여야 더 꿀맛이 나게 된다. 시대 말씀을 먹었으니, 누가 욕하고 악평해도 어찌랴. 그 소리를 들으니, 시대 말씀이 더 꿀맛이다.

131. <겨울>에 추울수록 자기가 수고하여 사 입은 ‘따뜻한 겨울옷’이 더 값지고, <여름>에 더울수록 자기가 수고하여 사 입은 ‘시원한 여름옷’이 더 값지다.

132. 비바람이 칠수록 ‘우산을 가진 자’는 더 빛나고, ‘우산’도 더 빛난다. 이 시대가 몰라보고 욕할수록 ‘섭리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더욱 빛나고, ‘섭리역사’도 ‘시대 말씀’도 더욱 빛난다.

133. 매여 있어서 서로 못 만나니, ‘사랑’도 ‘보고픈 마음’도 더욱 빛난다.

134. 고통 중에 정신 차리고 희망으로 행하면, 평소에 못 찾은 것을 찾게 된다.

<2014년 5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늦어도 알고 떠나라.

2. 알고 대화하자.

3. 메시아가 태어난 지역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좌정하신 곳이다.

4.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좌정하신 곳이었고, 그동안 그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펴 오셨다.

5. <만들어 놓은 것>도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그 존재물들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다.

6. <형상과 모양>도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그것들과 연관되어 관계성을 맺고 상호 존재할 때 더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다.

7. <형상과 모양>을 자세히 보고 알고, 그것들과 관계성을 맺고 상호 존재하며 쓸 때 보람이고, 복이고, 사랑을 주고받게 되며, 신기한 일이 생기고, 아름다운 것이다.

8. <소나무>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신비하다. 그러나 사람이 소나무와 관계성을 맺어 물을 주고, 가꾸고, 관리하고, 그 그늘에 앉으면서 상호 존재할 때 그 소나무가 더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다.

9. <과일나무>는 자체로도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러나 사람이 과일나무와 관계성을 맺어 키우고, 가꾸고, 사랑하며, 열매가 열면 열매를 따 먹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존재할 때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상적이다.

10. <모든 만물들>은 그냥 봐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그러나 사람이 사랑해 주고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 쓰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존재할 때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같은 목적을 두고 <만물>을 창조하셨다.

11. 모든 만물들이 서로 관계성을 맺고 상호 존재할 때 그리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다.

12. <물>이 있는데, 그냥 구경하고 좋아하면 그 차원으로만 아름답고 신비하다. 그런데 사람이 물을 만지며, 물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폭포수도 만들어 사용하고, 배도 만들어 물 위에 띄워 사용할 때 더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기쁘다.

13. <사람>도 자기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대인 관계'가 이루어져 더불어 살 때 더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기쁘다.

14. 만물을 보는 재미, 보는 기쁨, 보는 신비함, 보는 아름다움에서 차원을 높여 사람이 만물과 관계성을 맺고 일체 되어 사랑하고, 가꾸고, 만들어 사는 것이 <만물과 사람과의 이상세계>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15. 성자에게 물었다. “왜 <천연 굴>을 보면, 모두 ‘원’으로 되어 있고 ‘네모진 것’이 없지요?” 성자는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을 기본으로 구상하고 창조하셨다. 원 안에 ‘네모진 것’이 겹쳐 있다.”

16. 천지창조의 기본형은 ‘원’이다.

17. <우주>도 원형, <지구>도 원형, <태양>도 원형, <달>도 원형, <별>도 원형이다. <모든 만물들>은 기본이 ‘원형’이고, ‘원형’에서 길쭉해진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 <사람>도 ‘타원형’이다.

18. <천국>도 ‘원’을 기본으로 하여 창조하셨다.

19. <산>도, <나무>도, <바위>도 모두 원에 속한 ‘원형’이다.

20. 성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러하다. 그리하여라.’ 하시며, 낮고 굽은 음성으로 대답하시나요?” 성자는 말씀하셨다. “형상대로 대답하신다. 원형이면 원형대로 대답하시고, 타원형이면 타원형대로 대답하신다. <형상>은 ‘마음, 정신, 생각, 인격, 성장과 변화의 차원’을 말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마음, 정신, 생각, 인격, 성장과 변화의 차원’대로 대답하신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춰 대답하시고,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춰 대답하신다.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과 말의 느낌이 다르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음성과 말의 느낌이 또 다르다. <상대와의 상호 관계성>에 따라서 음성과 말의 느낌이 달라진다.(하셨다.)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로 보신다. 고로 그때 말씀하신다.

2. 성자는 성자를 생각하는 자를 성자를 쳐다보는 자로 보신다. 고로 그때 말씀하신다.

3. 성령님은 성령님을 생각하는 자를 성령님을 쳐다보는 자로 보신다. 고로 그때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신다.

4. 주는 주를 생각하는 자를 주를 쳐다보는 자로 보신다.
5. '생각의 눈'이다. '마음의 눈'이다. 생각하는 것이 쳐다보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만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6. <육신 세계>에서는 '눈'으로 보지만, <정신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본다.
7. 이 세상의 언어로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지장이 많다. 천국 영계에서는 '말'이 필요 없이 '생각'으로 그 의미를 100% 속 시원히 전달한다.
8.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해라.
9. 의미 전달을 충분히 해 주고 실천해 놓으면, 완벽하게 된다.
10. <육체>가 흥분됐을 때 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흥분됐을 때 해야 된다.
11. '흥분됐다'라는 말은 생각나고 깨달은 상태다. 마치 욕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난 것과 같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듯, 마음과 생각이 흥분됐을 때 해야 된다.
12. <마음·정신·생각>을 흥분시켜야 '게을러서 못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힘들어서 못 하는 일'도 할 수 있다.
13.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마음·정신·생각>을 흥분시키고 <육신>을 흥분시켜야 할 수 있다.
14.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차게 생각하는 것이 '흥분'이다. 그러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솟아나서 시동이 걸려 힘들지 않게 해진다.
15. 새벽에 혼자 교회에 가기 힘들면, 친구들과 약속해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려고 가게 된다. 그것을 자주 하면 습관이 되어 약속이 없어도 가진다. 그 후에는 성자와 약속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다 지루해지면 성령님과도 약속하고, 또 지루해지면 하나님과도 약속하고 가라. 그렇게 저마다 한 달, 혹은 세 달, 혹은 일곱 달, 혹은 1년씩 새벽기도 시간을 지켜 보라. 여자 청년부 1구는 그렇게 해서 '구'원들이 하나 되어 새벽기도를 한 지, 벌써 300일을 넘기고, 이제 700일 조건을 향해 도전하고 있다. (기간 정확히 확인할 것)
16. 새벽기도나 평소 기도를 할 때, 이왕이면 시간을 정해 놓고 성자와 약속해라. 그리고 그 시간에 꼭꼭 기도할 테니, 무엇을 달라고 약속해라. 성자는 약속하고 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원하신다.
17.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 놓고 '약속'하고 해야 <마음·정신·생각>이 흥분되어 해진다.
18.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시동이 잘 안 걸리는 자는 <마음과 몸>이 '중고차'처럼 되어 굳어 버렸기 때문이다. 새 정신, 새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리고 정신 차리고 '계획'을 세워 '약속'을 정해 놓고 꼭꼭 해라. 그러면 다시 '새 차'를 산격이 되어 쪽쪽 나간다.
19. <마음·정신·생각>이 '새 세단'인지, '오래된 중고차'인지 확인해라. 꿈에 자기 상태를 '차'로 보여 주신다.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뛰고 달리는 대로 '좋은 차'와 같은 <마음·정신·생각, 몸>이 된다.
20. <구시대의 삶>은 '구형 차와 같은 삶, 중고품과 같은 삶'이다. <새 시대의 삶>은 '신형 차와 같은 삶, 새 제품과 같은 삶'이다. 오래된 차가 새 세단을 못 따라오듯, 구시대는 아예 새 시대를 못 따라온다.

1. 싸워서 이기지 않고서는 차지할 수 없다.
2.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성자>를 차지해라.
3.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이 우선권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이 우선권이냐.' 하는 싸움이다.
4. 항상 <자기 생각>과 <성자의 생각>을 놓고 싸워서 '자기'를 이기고 <성자의 생각>대로 해야 '성자'를 차지하게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성자의 신부'가 되어 '오직 하나님 뜻대로, 주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가 90%다.
6. 자기와 싸워서 <자기 생각>을 아예 다 없애고 '성자'를 차지하고 '성자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는 10% 정도다.
7. 분별해라. 성자의 뜻대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100% 하는 것과, 성자가 시켜서 100% 하는 것은 다르다.
8. 항상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성자>를 차지하고 <분체>를 차지하고 살아라.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행해야 성자와 분체가 함께 행한다.
9. 자기와 싸워서 <자기 생각>을 싹 버리고 오직 성자가 시키시는 대로 해야 '성자가 그 몸을 쓰고 행한 일'이 된다.
10. 사람은 '육'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육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11. 항상 <육적인 생각>이 먼저 오고, <영적인 생각>은 나중에 온다.
12. '육'을 가지고 살아가니, <육>이 먼저이고 <영>은 나중이다.
13. 영감이 와도 <자기 육적 영감>이 먼저 온다. 근본 세계에서 오는 <성자의 영적 영감>은 나중에 온다.
14. 고로 늘 '자기'와 싸워 이겨서 <자기 육적 생각>을 제치고, <성자의 생각>을 차지해야 된다.
15. 계시도 '자기가 성자를 생각하며 기록한 내용'과 '성자가 주셔서 기록한 내용'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하여 행해 보면, <맛>도 다르고 <차원>도 확연히 다르고, <역사하는 힘>도 다르다.
16. <자기 육성과 자기 의지>도 '성자'에 대해서 말하고, <성자의 영성과 의지>도 '성자'에 대해 말하니, 그냥 보면 비슷하다. 그러나 지혜로 분별하면, 염소와 양을 구별하듯 확실히 분별하게 된다.
17. 항상 <성자>를 놓고, '자기'와 싸워서 <성자>를 차지해야 된다.
18. <자기와의 싸움>이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일하면서 싸우기다.
19. 자기가 존재하려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잘되고 형통하려면, '자기와 싸워 이기기'다. '수고와 노력과 몸부림과 땀 흘림과 보이지 않는 심정의 눈물'이다.
20. '살아 있는 자'만이 존재한다.
21. '싸움과 노력과 수고' 없이 그냥 한 일은 모두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한 일이다.

22. <자기 구원과 휴거>를 위해서 자기와 싸워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살아야 되는데, 성자와 분체를 믿고 <자기 구원과 휴거>를 위해 살면서도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을 ‘낙’으로 삼지 못하고 ‘노동’으로 여기며 힘들게 사는 자들이 있다. 고로 행했어도 ‘패하고 한 일’이 되어 <자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23. <기회>가 와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기회를 ‘승리’로 이끌어 간다.
24. ‘휴거의 때’를 맞아 ‘휴거의 기회’가 왔어도 자기와의 싸움을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휴거 300선>까지 ‘승리’로 이끌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한다.
25. 인생을 ‘수고와 노력 없이 사는 자’도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 자’도 있다. 결국 <자기>를 존재시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26. ‘수고와 노력 없이 인생을 쉽게 사는 자’는 얻는 것이 없다.
27.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자기와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28. 신앙생활을 할 때도 ‘수고와 노력 없이 하는 자’가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는 자’가 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며, 심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행하는 자는 결국 행한 대로 <구원>을 얻고, <자기 소망>을 이루고, <휴거>를 이루게 된다.
29. 수고하고 노력하고 심정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추수 때 많은 알곡을 얻는다. <2014년 5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30. 먼저는 ‘자기 이기기’다. 그다음에 ‘상대 이기기’다.
31. <자기 이기기>란, 자기 마음과 행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지배하여 ‘세상 헛된 것’에 자기를 뺏기지 않고, ‘이성’에 자기를 뺏기지 않고, ‘잘못된 말’에 자기를 뺏기지 않고, ‘사탄’에게 자기를 뺏기지 않는 것이다.
32. <자기를 이기는 목적>은 ‘성자를 얻기 위해서’다.
33. 먼저 ‘자기’와 싸워 이기고 ‘성자’를 차지하여, 성자가 자기를 딱 붙들고 하게 하면 쉽고, 편안하다. 영원한 승리의 길로 따라가게 된다.
34. <육신>은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자기와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편하기 때문이다.
35. <자기 육>과 <육에 속한 마음>은 성자를 자기 생각대로 대하려 한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36. 성자는 <영에 속한 성자의 마음>으로 성자를 대하기 원하신다. 그래야 ‘성자’를 차지하고, ‘성자의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37. 새벽에도 ‘자기’와 싸워 이겨 ‘성자’를 차지하고 성자와 대화하며 교통해라.
38. 성자와 주를 믿어도 그냥 믿고 살면, 헛살게 된다. 매사에 ‘자기’와 싸워 이겨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성자’를 차지하여 ‘성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라. 그래야 행한 만큼 얻게 되고, 행한 만큼 변화되고, 변화된 만큼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게 된다.
39.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싸워서 차지해도 ‘무엇’을 놓고 노력하며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40. <신약>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서 차지해도 ‘신약’이다. <낙원>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싸워서 차지해도 ‘낙원’이다.
41. <은메달>을 놓고 싸우면, 이겨도 ‘은메달’이다. <금메달>을 놓고 싸워서 이겨야 ‘금메달’이다.
42. <성자>를 우선으로 하여 싸워서 차지해야 ‘금메달’이다.
43. <성자>를 우선으로 하되, ‘신랑으로 오신 성자’를 ‘사랑’으로 싸워서 차지해야 ‘금메달’이다.
44.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역사인 <성약역사>를 만나, ‘시대 보낸 자’를 맞고, 그를 통해 <새 말씀>을 들어야 된다.
45. 그래야 ‘신랑으로 다시 오신 성자’를 ‘사랑’으로 맞아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다.
46. <구약역사>는 ‘동메달’, <신약역사>는 ‘은메달’, <성약역사>는 ‘금메달’ 격이다.
47. <구약역사>는 ‘자기 혼자 사는 시대’이고, <신약역사>는 ‘앞으로 오실 성자를 기다리며 사는 시대’이고, <성약역사>는 ‘신랑으로 다시 오신 성자를 맞고 사는 시대’다.
48. 똑같이 <구원>을 놓고 싸워도 어떤 시대를 만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49.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며 사는 것’과 ‘사랑하는 자를 맞고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그 차이는 ‘자전거’와 ‘차’ 차이다.
50. <성약 섭리역사>는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며 사는 시대’가 아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같이 사는 시대’다.
51. <성약 섭리역사>에 와서 살아도 ‘연애하며 사귀고 있는 자’가 있고, ‘사랑하는 성자를 진짜 만나서 같이 사는 자’도 있다. 그 차이는 ‘차’와 ‘비행기’의 차이다.
52. <섭리역사>에 와서 ‘성자와 그 육’을 맞고 살더라도, 자기와 싸워 이겨서 성자와 완전히 ‘생각 일체, 심정 일체, 행동 일체, 사랑 일체’ 되어 성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
53. 지금은 ‘연애하는 정도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같이 사는 시대’다.
54. 성자가 다시 오시어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약 섭리역사>에 와서 수고하고 노력하며 ‘자기’와 싸워 이겨야 ‘신부’로서 <성자>를 차지하여 <천국>, 곧 <신부급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55. <성약역사> 기간 중에서도 ‘성자의 육이 살아 있는 기간’에 <휴거 때>를 맞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자기’와 싸워 이기는 자가 ‘최고로 빛나는 구원’을 이루고, ‘최고로 빛나는 면류관’을 받게 되고, ‘최고로 빛나는 영’이 되어 휴거됨으로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게 된다.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56. <자기와 싸워서 이기려는 목적>은 ‘성자를 얻기 위해서’다.
57. 먼저 ‘자기’와 싸워 이기고 ‘성자’를 차지해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가 성자를 딱 붙들고 하게 되고, 성자도 그 육과 생각과 혼과 영을 딱 붙들고 행해 주신다. 그러니 겉길로 새지 않고, <영원한 승리의 길, 휴거의 길, 천국의 길>로 가게 된다.
58. 일출을 성자와 자기가 똑같이 봤다 하자. ‘자기가 “해가 떴다.” 말하며 자기가 기록하는 것’과, ‘성자가 “해가 떴구

나.”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분별하고 알아라.

59. 똑같은 것을 그린다 하자. 똑같은 것을 그리기에, ‘자기가 구상해서 그린 것’과 ‘성자가 구상해서 그린 것’이 겹으로만 보면 비슷하니, 누가 구상해서 그렸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린 자’는 안다. 또한 싸워서 성자를 차지한 자는 성자에게 물어서 안다.

60. 계시를 받을 때는 ‘성자 머리’로 시동이 걸려서 계시가 온다. 그러나 ‘자기 머리’로도 시동이 걸리면 하나하나 생각이 온다. 그래도 자기 생각을 기록하면 안 된다.

61. 운전대가 세 개가 있는 차가 있다 하자. 성자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있고, 자기는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다 하자. 자기 앞에 운전대가 있다고 해서 그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운전하면 안 된다. 성자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영계에서 나무가 없는 큰 산이 보였다. ‘나’는 나무를 종과 횡으로 맞춰서 심어 놓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나무를 심은 곳 옆에다가 다른 방향으로 줄을 맞춰서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때 흰옷 입은 세 사람이 우리 앞에 오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종과 횡으로 안 맞추고 심은 나무는 다 뽑아라.” 했다. 결국 그 나무는 다 뽑고 말았다. 내가 심은 나무는 종과 횡으로 맞춰서 심었기에 뽑지 않고, 산 끝까지 나무를 심어 나갔다.

63. 내가 심는 나무는 ‘생명’도 되고, ‘성자의 뜻을 실행하는 것’도 되고, ‘잠언’도 되고, ‘설교’도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된다. 이를 순간 영상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64.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뽑는다.” 하셨다.

65. 자기와 싸워서 이기고 성자를 차지하여 ‘성자의 생각’으로 심어야 된다.

66. 또 영계에서 한 장면이 보였다. 산 끝까지 가니 큰 바위 하나가 있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저 바위 멋있다!” 했다.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 바위의 크기가 큰 방 하나 정도만 했다. 그런데 큰 소나무 한 그루가 그 큰 바위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바위보다 소나무가 더 멋있다.” 하니, 성자는 “네가 한 말이 맞다.” 하셨다. 큰 바위는 경사진 곳에 있었는데, 소나무가 바위를 안고 자랐기에 안전하고 튼튼했다. 바위와 소나무는 ‘생명’을 의미한다. ‘말씀’을 의미한다. 그 바위 밑에 마치 동굴 속의 서릿발같이 뻗어 있는 작은 수정 돌들이 한 뼘 길이로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나는 내가 찾던 자연석이라서 주웠고,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관심 없는 돌이라면서 주워서 내게 주었다. 그 수정 돌은 ‘생명’을 의미한다. 또한 ‘말씀’을 의미한다. <생명의 보화>, <말씀의 보화>다.

67.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성자와 주’를 차지하여, 필요 없이 위험한 것들은 다 헐어 버리고 그가 이끌어 주는 대로 가라.

68. 자기의 <육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 두 마음과 싸워서 ‘성자와 주’를 차지해라. 그리고 ‘성자와 주의 생각’으로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자’요, ‘성자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의향으로 하는 자’다.

69. 자기 의향으로 하면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불도 못 붙이고 끝난다. 자기 역시 거목처럼 크지 못한다.

70. 자기와 싸워서 이기면, ‘사탄’도 오지도 못하고 왔다가 구경만 하고 간다.

<2014년 5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71. 개인·가정·민족·세계 모두 <1단계>를 거쳐서 <2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72. ‘새벽에 잠에서 깬 것’은 <1단계>다. ‘일어나 활동하는 것’은 <2단계>다.

73. ‘구약’은 <1단계>, ‘신약’은 <2단계>다.

74. '신약'은 <1단계>, '성약'은 <2단계>다.
75. '자기 혼자 있을 때'는 <1단계>다. '성자와 같이 있을 때'는 <2단계>다.
76. '육적 휴거'는 <1단계>, '영적 휴거'는 <2단계>다.
77. '어떤 일을 놓고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은 <1단계>다. '행하는 것'은 <2단계>다.
78.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자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잠에서 깬지만 누워만 있었던 자'는 <1단계> 인생이다. '일어나 문을 따 준 자'는 <2단계> 인생이다.
79. '육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1단계> 삶이다. '영을 위해 사는 삶'은 <2단계> 삶이다.
80. '애벌레, 굼벵이 삶'은 <1단계> 삶이다. '부활되어 나비, 매미가 되어 날면서 사는 삶'은 <2단계> 삶이다.
81. '차에 시동만 걸어 놓은 상태'는 <1단계>다. '기어를 넣고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달리는 단계'는 <2단계>다. - '인생'이라는 차도 그러하다. <1단계>를 거쳐서 <2단계>까지는 가야 된다.
82. <1단계 인생 삶>을 사는 자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자요, 현실에서는 누워서 눈만 깜박거리면서 희망에만 불타고, 공상에만 불타서 사는 인생이다.
83. 하나님의 역사는 <1단계 시대>에서 <2단계 시대>로 오는 데, 유구한 4000년 구약역사와 2000년 신약역사를 거쳐 기다렸다. 심정을 태우고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렸던 <2단계 역사>가 왔어도 눈만 떴지, 몽롱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다.
84. <1단계>에서 <2단계>로 오르려면, 일어나기다. 활동하기다. 움직이기다.
85. 나무를 캐 가려고 침을 찍어 놓은 상태는 <1단계>다. 나무를 캐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에 심은 상태는 <2단계>다.
86. '샘을 파는 단계'는 <1단계>다. '샘물을 먹는 단계'는 <2단계>다.
87. '육의 삶'은 <1단계 삶>, '영의 삶'은 <2단계 삶>이다.
88. '마음'은 <1단계>, '행동'은 <2단계>다.
89. '주체의 사랑'은 <1단계>, '대상의 사랑'은 <2단계>다.
90. '성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1단계 사랑>이다. '내가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 <2단계로 오른 사랑>이다.
91. 사랑은 '대상의 사랑'이 핵이다. 고로 '대상의 사랑'이 <2단계 사랑>이다.
92. 성자가 하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시동이 걸려서 뇌에서 '영감의 생각'이 흐른다.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기록하면 안 된다. 성자가 주시는 말씀만 일사천리로 기록하는 것이다.
93. 성자가 말씀하시면, 자기도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서 자기 생각대로 쓰고 싶고 하고 싶다. 그 시간에 오직 성자가 하시는 말씀만 기록하고, 오직 성자가 행하시는 것만 시중들기다.
94. 선생과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선생을 따라서 같이 하다가 자기 머리에도 방법이 떠오른다. 그때 자기 방

법으로 하면 안 된다. 계속 선생을 따라서 해야 된다. 자기 방법이 떠올랐다고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선생의 <원가지 단계>에서 뺀어 나가 생각나는 <잔가지 생각들>이다.

95. 계시를 받을 때 ‘성자의 계시’를 받다 보면, 자기도 어떤 것이 깨달아진다. 그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면, 그것은 ‘자기 주관, 자기 의지 계시’가 된다. 고로 ‘성자의 계시’가 뒤바뀐다.

96. 설교하다가 설교자가 모두 잘 알아들으라고 ‘부연 설명’을 하면, ‘원 설교’는 문혀 버린다.

97. ‘부연 설명’은 <1단계>, ‘원 설교’는 <2단계>다.

98. ‘원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표현을 달리 하고 싶은 생각이 온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전체 흐름을 타고 성자가 말씀하시는데, 설교자가 순간 ‘한 단어’ 더 좋은 것을 넣는다고 해서 전체가 빛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성자의 말씀을 가린다. 듣는 자들은 ‘원 설교 내용’을 잊게 된다.

99. (성자) 내 말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100. 왕의 어명을 빼지도 말고, 자기 것을 더하지 말아라.

101. 시대가 악하고 험담하고 악평한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빼고 가르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의 이름을 말하려느냐. 주가 전한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여라.)

102. ‘자기 이름’으로 천국에 가겠느냐. 낙원에 가겠느냐. ‘구원자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103. ‘자기’는 <1단계>, ‘구원자’는 <2단계>다.

104. ‘자기 이름으로 하는 자’는 <1단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는 <2단계>다.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분석하고 분별 해라.

105. 하나님과 성자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면, ‘백지’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성자는 그 기록을 보고 대하신다.

106. 성자와 주를 앞세워 놓고서, 막상 행할 때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날아가 무(無)가 된다.

107. ‘성자와 주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아 있다. 곧 성자와 주가 심은 것만 뽑히지 않고, 금(金)이 남아진다.

108. 성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성자의 결재 도장이 안 찍힌다.

109. 성자와 함께하지 않으면, 깊이 파도 금(金)이 나오지 않는다. 성자가 주인인데, 함께하지 않으니 알려 주지 않으신다.

110. 월명동에 ‘돌과 바위를 운동장에 갖다 놓은 것’은 <1단계>다. ‘쌓는 것’은 <2단계>다.

111.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간 것’은 <1단계>다. ‘수영하는 것’은 <2단계>다.

112. ‘목욕탕에 간 것’은 <1단계>다. ‘목욕하고 씻는 것’은 <2단계>다.

113. ‘기도하는 것’은 <1단계>다. / 깊은 기도를 하면서 성자와 일체 되어 기도하는 것’은 <2단계>다.

114.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1단계>다. ‘전도한 것’은 <2단계>다.

115. '전도한 것'은 <1단계>다. '말씀을 가르쳐 시대를 깨우쳐 주는 것'은 <2단계>다.

116. '가르치고 깨닫게 한 것'은 <1단계>다. '관리해 주고 사명을 줘 스스로 행하게 하는 것'은 <2단계>다.

117. '초림하신 성자를 믿고 그 본체를 믿는 자'는 <1단계 구원>을 받고 사는 자이고, '재림하신 성자를 믿고 그 본체를 믿는 삶'은 <2단계 구원>을 받고 사는 자의 삶이다.

118. '재림 때 이 땅의 구원자, 성자의 육을 믿고 사는 자'는 <1단계 육적 휴거>를 이룬 자다. '자기 육이 구원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욱 온전히 행하여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성자 본체를 맞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자'는 <2단계 영적 휴거>를 이룬 자다.

<2014년 5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인도하기 힘들다.

2. 성자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자라도 인도해 주기 힘든 것이다.

3. ("잠언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자에게 물었을 때)잠언은 '지혜로 계시한 말씀'이다.

4. '듣는 자'는 마음이 기쁘고, '행하는 자'는 얻는다.

5. <몸>으로 들어가면 빠진다. <마음>으로 들어가면 <몸>은 안 빠진다.

6.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몸>도 <마음>도 빠진다.

7. '사진'은 천사를 만들지만, '눈'은 못 만든다.

8. 고생되지만, 길을 내면 <몸>이 갈 수 있다.

9. 나무가 매미를 향해 날아가서 앓을 수 있느냐? 매미가 나무를 향해 날아가서 앓듯,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가서 붙어야 그 품에서 살게 된다.

10. 중고품도 사다가 그냥 쓰면 중고품이지만, 새 부속품들을 사다가 새롭게 만들면 새것이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11. 기술자는 만든다.

12. 만들어서 찾아라.

13. 기울이고 물을 부어라. (제스처 하면서 표현해 주기)

14. 마음 식으면 차갑다. 뜨겁게 하자.

15. 정말 휴거되지 못할 자는 도우면, 손해다.

16. 정말 휴거되지 못할 자를 도우면, 돕는 자가 손해다.

17. 휴거되지 못할 자를 돕는 것은 죽은 과일나무에 퇴비하는 농부와 같다.

18. 모두 분별하고 행해라.

19. 기도를 깊이 하고 행하자! 계산하고 행하자!

1. 나를 통한 상대 계시다.

2. 나를 통해서 상대에게 계시해 주신다.

3. 나를 먼저 겪게 하시고, 상대에게 계시해 주신다.

4. 성자는 나를 먼저 겪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 시대를 가르쳐 주며 깨닫게 하신다.

5. 제시간에 하면 여유 있게 하여 죽을 생명을 살리지만, 때를 놓치면 죽은 시체 찾기도 힘들다. 거기서 또 기회를 놓치면 시체마저 못 찾는다.

6. 좁아서 못 들어가는 작은 구멍이라도 파라. 그러면 생각보다 크고 넓은 곳이 나온다.

7. <성자바위> 한쪽 면만으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본체의 형상’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잠언>도 하나의 잠언으로는 ‘그쪽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나타내지 못한다.

8. 하나님도 ‘한 가지’로는 다 못 하신다. ‘여러 가지’로 다양해야 다 할 수 있다.

9. 한 가지로만 간단히 하려 하지 말아라. 다양하게 해라.

10. 굴도 여러 가지로 형성되어 생기게 된다. 고체와 액체 원리로 형성되기도 하고, 화산 폭발로 용암이 분출되어 형성되기도 하고, 석회석이 오랫동안 굳어서 형성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는 데도 ‘한 가지’로는 다 할 수 없다. ‘여러 가지’로 합당하게 해야 할 수 있다.

11. 같은 말이라도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좌우되고, <성공과 실패>도 좌우된다.

12. 건물이나 어떤 존재물의 ‘모양’에 따라 <결작>이 좌우되듯, ‘말의 표현’에 따라 <위대한 결작>을 만들게 된다.

13. 시나, 편지나, 성경의 글이나, 각종 문학도 ‘말의 표현’에 따라서 <대결작>이 되기도 하고, <졸작>이 되기도 한다.

14. 사람이 다니기 어려워도 ‘본 형태’가 좋아야 된다. 사람이 다니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본 형태는 못 만들기 때문이다.

15. 굴은 험하고 무섭고 스릴 있어야 최고의 작품이다. 사람이 다니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형상’은 사람이 못 만든다.

16. 굴이 밋밋하고 평범하여 사람이 다니기 좋으면 ‘결작’이 못 된다. 하나의 ‘사굴(私掘)’에 불과하다. 본 형태가 험난하게 생겨야 하고, 거기에서 사람이 다니기 좋게 만들어야 ‘작품’이 된다.

17. 굴은 본래부터 타고나야 된다. ‘모양과 형상’이 타고나야 된다.

18. 굴의 운명으로 아예 타고나야 된다.

19. 굴은 <섭리역사>와 같다. 섭리역사는 구역사의 터전 위에 타고난다. ‘신부의 운명’으로 타고났다. 그러나 코스가 험난하여 각종 시련과 연단을 겪으면서 조심하면서 가야 될 역사의 코스다.

20. 굴은 스릴을 느끼며 카리스마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되, 조심하면서 가야 된다. ‘길’만 따라가야지 ‘딴 길’로 가면 위험하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도 카리스마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그리고 성자와 본체가 말한 대로 ‘길’만 따라서 가야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코스다.

<2014년 6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1978년 6월 1일은 <성자가 주신 성약의 새 복음>을 처음으로 세상에 전한 날이다. 매년 그 날을 기념해라.
2. <복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이다.
3. <구원>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때가 되어 ‘생명의 시대 말씀’을 전함으로 시작된다. - 그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100% 알고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룬다.
4. <복음>으로 ‘구원’이 시작된다.
5. <복음>은 ‘생명 구원의 역사’이며 ‘환희의 역사’다.
6.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7. <복음>은 ‘육과 영을 구원하기 위한 무기’다.
8.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꺾는 사탄들을 멸한다.
9.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낸다.
10. <복음>을 전함으로 시대 소경들이 눈을 떠, 보게 된다.
11.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은 <환희의 날>이다.
12. ‘인생을 구원하는 방법’은 <복음>에 들어 있다.
13. 사탄 마귀들이 연약한 생명들을 괴롭히고 사망으로 이끌어 갈 때, 누가 그 사탄을 멸하고 그들을 끌어오랴. ‘시대 복음을 받은 자’가 ‘시대 복음’을 전함으로 끌어낸다.
14.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희망으로 ‘복음’을 전해라.
15. <서울>은 ‘복음의 핵심지’다.
16. 성자는 ‘복음의 핵심지’인 <서울>에서 말씀의 원자폭탄을 터트리라 하셨다.
17. <월명동>은 ‘복음의 알파 지역’이며 ‘복음의 오메가 지역’이다. <월명동>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끝난다.
18. <복음>은 ‘성자가 보낸 자’를 말한다. 고로 <월명동>은 ‘사명자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지역’이다.
19. ‘섭리사 세계 중심의 성전’은 <월명동>이다.

20. <월명동>은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 성자의 몸, 사명자의 몸’을 상징한다.
21.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차지했다. 그리함으로 ‘시대의 성전’도 차지했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전에 와서 너의 사연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늘 그 전에 거하며 너와 대화하신다.
23. <월명동>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이다. 이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으로 대하며 성전 안을 거닐어라.
24. ‘시대 보낸 자’가 어렸을 때 재림주를 기다리며 하늘의 흰 구름을 쳐다보던 곳이 <월명동>이다.
25. <성지 땅 월명동>은 누가 뭐라 해도 1000년 역사까지 간다.
26. ‘시대 보낸 자’는 <월명동>을 놓고 1000년까지 앞을 내다보고 기도해 놓았고, 이미 1000년 동안 쓸 것을 다 받았다.
27. 세상 그 어떤 성전도 부러워 말아라. 이곳은 6000년 구약역사와 신약역사의 터전 위에 <신부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다.
28. 자연성전을 귀히 여길수록 더욱 깨닫게 되고, 자연성전을 귀히 대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역사하신다.

<2014년 6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성자는 1978년 6월 1일에 서울에서 <성약의 새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30. 도표를 말아서 끈을 달아 대포를 어깨에 매듯 매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슬라이드 영사기를 들고 <성자가 주신 복음>으로 무장하고 떠났다.
31. <도표>는 마치 ‘시대를 살리는 양식’ 같았다. <슬라이드>는 마치 ‘원격 조종 레이더’ 같았다. <가방>은 ‘하늘의 비밀이 들어 있는 실탄 통’ 같았다.
32. 1978년 5월 23일 아침, 말씀의 무기를 들고 ‘월명동 앞섭골 재’를 넘어 진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천안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타고 갔다.
33. 이미 성자에게 받은 ‘말씀의 검’이 있지만, 이 검을 잘 휘둘러 사탄을 멸하기 위해 ‘서울’까지 가기 전에 ‘천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기도 장소는 충남 온양 쪽에 있는 ‘배방산’이었다.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극치의 기도를 했다.
34. 배방산의 한 소나무 밑에서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독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기도를 방해했다. 그 자리에서 끔찍도 하지 않고 자리도 안 옮기고, 성자에게 배운 대로 독사에게 명령하여 쫓아내고, 계속 기도했다. 그리함으로 ‘말씀의 검’을 더욱 닦고, 내 마음을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더욱 무장했다.
35. 성자는 최고로 극적인 곳에서 기도하게 하셨다.
36. 배방산에서 기도할 때 독사들을 보면서 성자는 깨닫게 하셨다.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영사탄이 인간을 쓰고 악질적으로 너를 공격하며 막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된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들이 방해해도 이기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펴겠다고 각오하고 멋있게 하자! 여기서 개인·민족·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37. 그리고 성자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치하셨다. 첫째, ‘사탄’과 ‘사탄에게 쓰여지는 사람’을 쪼개서 다루기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해라. ‘사람’이 말 안 듣고 악평한다고, 겉만 보고 악으로 대하지 마라. 둘째,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 결사적으로 막는다. 반드시 이를 알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라. 셋째, 들썩 놓고 말씀을 전하면, 두 겹 줄이라 자기 주관이 안 끊어진다. 그러니 한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 주관이 끊어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넷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됐을 때, 양식의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 양식을 구해 갔다. 그때 요셉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한 사람씩 자세히 파악하여,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반대한 형제들이 왔는지 찾았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자기 신분을 숨기고 모사를 써서, 아직도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확인했다.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제야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냈다. 이 시대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신앙의 혈통이며 형제들인 구시대 기성’에서 왔는지 파악해라. 그들에게 너를 숨기고, 지금도 섭리역사와 너를 그리도 미워하는지 확인하고, 오직 <말씀>으로 나타내야 된다.

38. 선생은 ‘배방산’에서 극치의 기도를 하면서 더욱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을 더 예리하게 만들어 ‘서울’로 떠났다.

39. 1978년 6월 1일 <새 역사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성자는 영계에서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 주셨다. ‘말씀의 기근’이 들어 영혼들이 굶주리고 있었고, 다 죽어 가고 있었다.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니, 그 영혼이 젓가락같이 말라서 피골상접이 되어 있었다.

40. <복음>은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이다.

41. 그동안 선생이 거리를 다니며 노방전도 했던 것은 <섭리역사>를 펴기 위한 연습이었다. 성자는 이제 <성자가 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내 양 떼, 내 생명’으로 기르게 하셨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

42. ‘배방산’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성자가 말씀하신 6월 1일의 하루 전인 5월의 마지막 날에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해서 6월 1일을 맞았다.

43. 선생은 서울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았다. 복음의 인연이 되어 사람들을 만나서 아픈 사람들의 병도 고쳐 주고, 미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기도해 주며 낮게 해 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었다.

44. 그리고 ‘삼각산 기도원’으로 갔다. 그곳에 거하면서 철야 기도하며, 그곳에서 뜻이 있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

45. 잘 곳이 없을 때는 바위 밑에서 자고 기도했다. 목욕할 곳이 없으면, 역수같이 비가 올 때 빗물로 목욕했다. 그동안 산에서 배우고 연단받은 대로 했다.

46. <복음의 시작>은 미약했다. ‘한 명’씩 만나면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해 주었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과 육신이 병들어 고통 받는 사람들을 고쳐 주면서 <복음의 터>를 조금씩 닦아 나갔다.

마치 태 안에서 태아가 조금씩 형성되듯이, 1978년 6월 1일부터 서울에서 1년 가까이 서서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터>를 닦았다.

47. ‘삼각산’에서 ‘종로 쪽 원남동’으로, 다시 ‘행당동’으로, 다시 ‘성북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48. 그 후 ‘남가좌동’에 가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신촌 이대 앞’에 가서 5척 방 교회를 만들어 복음을 전했다.

49. ‘남가좌동’에 있을 때, 성자는 앞날을 내다보시고 ‘월명동 생가 터’를 사게 하셨다.

50. 그 후 ‘삼선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51. ‘삼선교’에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월명동을 왔다 갔다 하며 고향에 사 놓은 집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했다.
52.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선생에게 ‘이 시대 복음’을 주시고 <섭리역사>를 펴 나가시며, ‘이 시대 육적 주인이 태어난 고향’으로 오게 하셨다.
53. 그리고 월명동에 대해 인식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의 고향에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셨다.
54. 결국 성자는 왜 월명동에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들어야 하는지 나를 이해시키시고, ‘복음을 시작한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섭리사의 모든 일을 하게 하셨다.
55. 월명동 개발은 처음에는 인력거로 조금씩 흙을 파내고 운동장을 넓히면서, 앞산의 밭을 파내면서 시작했다.
56. <개발의 시작>은 ‘미약’했다. 그러나 선생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행하여 <장래>에는 ‘창대’하게 되었다.
57. <복음의 시작>은 ‘미약’했다. 그러나 오늘날 36년 만에 ‘창대’하게 되었다.
58. <복음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생각하고, 너희도 <새 역사, 새 복음>을 전해라. 하면,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이 전도된다. 더욱 창대하게 된다.

<2014년 6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59. 성자는 나를 ‘복음의 핵심지인 서울’로 보내어 1978년 6월 1일에 <성약의 새 복음>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루도 지체하지 말라 하셨다. 하루도 늦으면 안 된다 하셨다.
60. 성경의 모든 예언은 ‘때’를 맞춰 이뤄야 되기 때문이다.
61. ‘시작’이 맞아야 ‘끝’이 맞기 때문이다.
62. <하나님의 새 역사, 새 복음>은 아무 때나 선포하지 않는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행하시니, 하나님과 성자가 <말씀>을 줘야 외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63. 과거 구약역사도 ‘때’를 맞추어 시작했고, 현재 신약역사도 ‘때’를 맞추어 시작했고, 미래 성약역사도 ‘때’를 맞춰야 되기에 1978년 6월 1일에 <새 복음>을 전하며 <새 역사>를 시작했다.
64. 1978년에는 <미래의 성약역사>였던 것이, 2014년 오늘날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섭리역사>가 되었다.
65. ‘때’가 안 맞으면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니다.
66. ‘때’를 맞춰 오지 않는 비행기는 ‘적기(敵機)’다. 이와 같이 ‘제때’ 안 오고, ‘미리’ 오거나 ‘늦게’ 오는 자는 자기가 역사를 만들어서 온 <이단>이다.
67.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자는 성경의 지난 역사와 미래의 역사까지 다 맞춰서 온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나중,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맞다.
68. 나사도 구멍에 안 맞으면, 구멍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때’가 맞고 ‘성경 역사’가 다 맞아야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룬다.
69. <주>는 ‘문’이다. 안 맞으면, 못 들어간다.

70. <시대의 주인>은 ‘제때’ 와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에, 성경이 풀리는 것이다.
71. 절도와 강도는 ‘주인의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는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온다. ‘주인의 시간’에 맞춰서 오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고 잡히기 때문이다.
72. 이와 같이 자기 뜻을 이루러 오는 자는 ‘하나님의 때, 성경 역사의 때’를 맞춰서 오지 않는다.
73. <시대의 주인>만이 성경 역사에 맞춰서 ‘제때’ 온다.
74. 스스로는 ‘성경 역사의 때’를 못 맞춘다.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추신다.
75. ‘말씀’은 섭리사의 것을 도둑질하여 가져다 전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때’를 맞추겠느냐. 그러니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76.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으니, <시대의 주인>이 아니라면 ‘때’를 못 맞춘다.
77. ‘때’를 맞추면서 ‘말씀’을 전해야 성경에 예언된 역사가 이루어진다. 고로 비진리는 다 들통 난다.
78.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때’를 맞춰 <보낸 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때’를 맞춰 행하신다. ‘때’가 안 맞으면, 모두 비진리다. 하나님은 ‘때’이시다.
79.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한 때 두 때 반 때’의 정한 때를 맞추신다. (어느 때는 3일 반, 어느 때는 3일 반을 확대하여 3년 6개월, 어느 때는 14년, 어느 때는 10일, 어느 때는 10일을 확대하여 10개월, 어느 때는 7년, 어느 때는 21년, 어느 때는 40년, 어느 때는 400년, 어느 때는 2000년, 어느 때는 4000년... 정한 기간을 맞춰서 행하신다.)
80. 섭리역사는 1978년 6월에 시작하여 1999년까지 21년 동안 <공적 역사>를 펴며 <1차 부활기>를 보냈다.
81. 그리고 1999년부터 3년 6개월을 네 번 거쳐 14년 동안 <무덤 기간>을 보내며 <2차 부활기>를 보냈다.
82. 이 <무덤 기간>은 ‘이 시대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못한 대가’이며, ‘따르는 자들이 보낸 자 앞에 절대 믿음과 사랑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대가’였다.
83. 이에 ‘시대 보낸 자’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의 무덤 기간을 ‘네 번’ 보내면서, 이 시대와 따르는 자들을 위해 시대 십자가를 지고 대신 조건을 세워 주었다.
84. ‘4 수’는 ‘탕감 수’이기에, 시대 보낸 자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의 무덤 기간을 ‘네 번’ 보내면서, 모든 조건을 다 세워 주었다.
85. <외적 관원>이 없어서 예수님 때같이 ‘보낸 자’는 시대 십자가를 졌지만, 내적으로는 ‘보낸 자’ 앞에 조건을 세운 <내적 관원>이 나왔다. 곧 ‘섭리사의 두 증인’이다.
86. 이 시대는 판국이 기울어 ‘시대의 주’를 맞지 못하여 시대 보낸 자가 ‘고난의 주’가 되었지만, 섭리사에서 내적 관원이 나옴으로 ‘시대 보낸 자’는 성자와 함께 그 발판을 딛고, 영적으로 부활하여 ‘영광의 주’로 나타났다.
87. 이로써 2013년부터 <섭리역사 독립과 부활의 해>를 맞았고, 육을 통해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완성하여 성자 본체를 맞아 천국으로 휴거되는 <영 휴거의 때, 혼인 잔치의 때>를 맞게 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88. 지금 이때 ‘시대의 핵’을 네 뇌 속에 가득 채우고, ‘핵’을 끌어안아라. 핵이 무엇이나? <성자>이며, <분체>이며, <휴거>다.

<2014년 6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를 깊이 해야 깊은 단계에 들어간다.
2. 생각을 깊이 해야 깊은 단계에 들어가, ‘성자의 깊은 비밀’도 알게 되고 ‘자기 할 일’도 알게 된다.
3. 외우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4.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린다.
5. 생각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6.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가서 장을 봤다. 엄마는 아기를 의자에 앉히면서 “엄마가 물건을 다 사고 나서 데리고 갈 테니까 여기 앉아서 기다려.” 했다. 엄마는 시장을 다 보고 집에 와서 급히 밥을 하고, 밥 먹을 때가 돼서 아기를 불렀다. 그런데 아기는 없었다. ‘어디 갔지?’ 하며 이 방, 저 방 찾아도 없었다. 화를 내면서 “어디 갔어?” 하며, 밥이 다 식도록 불렀다. 그때 아기의 언니가 “혹시 엄마가 아까 시장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 했다. 엄마는 그제야 아기를 어디에 뒀는지 생각났다. 급히 시장으로 가 보니, 아기는 의자를 꼭 잡고 있었다. “왜 의자를 잡고 있어?” 하니, 아기는 “엄마가 올 때까지 딛 데 안 가려고, 독한 마음 먹고 의자를 껴안고 있었어요.” 했다.
7.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날 때까지 하루 이틀이 지나도 모른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잊어버리고 10년도, 20년도 잘 살아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나게 해 줘야 생각이 나서 믿게 되고 찾게 되니, <복음>을 전해 주어라!
8. 주일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억난다. 그러나 한두 시간씩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고로 ‘주제’라도 외워라. 그러면 ‘주제’를 따라 ‘말씀’이 연상되고, 그때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난다.
9. ‘전체’를 다 못 외우니 ‘핵의 단어’라도 외워라. 그러면 그것을 통해 ‘전체’가 생각난다.
10.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100% 뇌에 기억이 난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면 생각이 흐릿해져 ‘기억’으로만 생각해야 하니, 형태와 모양을 거의 잊어버리게 된다. 고로 눈으로 볼 때 ‘핵 부분’을 외워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그 ‘핵’을 통해 ‘전체 형상’이 생각난다.
11. ‘말할 때’는 100% 뇌에 기억난다. 그러나 말이 끝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에서 사라진다. 고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그중의 ‘핵심’은 집중적으로 외워라. 그 ‘핵심’을 가지고 ‘다른 것’도 기억하게 된다.
12. 성자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알아보시겠느냐. ‘24시간 생활’을 보고 알아보신다.
13. 시간이 중요하기보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14. 인생이 중요하기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15. <일>도 할 때 해야 되고, <휴거>도 할 때 해야 된다.
16. 이 시대에 <휴거>보다 중한 것은 없다.
17. 분체가 본체와 일체 되었다면, 분체는 ‘보이는 본체’다.

18. <행실>이 게으른 자는 <사랑>도 게으른 자다.

19. ‘한쪽’만 하면 안 통한다. ‘양쪽’다 해야 통한다.

20. 하늘 편 ‘성자’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늘 편 한쪽만 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성자는 온 인류를 벌써 다 구하시고, 모두 다 <천국 차원>으로 살게 하셨을 것이다.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너무도 많은 선남선녀들이 거의 다 <지옥>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육적으로 못 사니 안 믿는 것이다. 고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21. ‘하늘 편’만 하면 안 통한다. ‘땅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만 통한다.

22. 하늘의 법이 있다. 그 법은 ‘행한 대로 얻는 법’이다. 자기가 전능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상으로 만들어 가며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이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명령하면서 가야 된다.

24. ‘자기 혼과 영’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에게 명령하고 ‘자기 육’을 다스리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며 살게 해야 된다.

<2014년 6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천국>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선’까지 만들어졌다.

2. <천국의 범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선’까지다.

3. <이 세상>은 ‘육신의 한계선’까지 만들지만, <영계>는 ‘마음과 생각의 한계선’과 ‘영의 한계선’까지 만든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4. <영계>는 ‘마음과 생각의 한계선’까지 만든다. 그러니 얼마나 웅장하고 크게 만들겠느냐.

5. 한번 ‘마음과 생각’으로 무엇을 만든다 생각하고, 구상을 해 보라. ‘마음’으로는 하루에 별까지 갔다 온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만들겠느냐. 하나님도 <영계>를 그 정도로 만드신다는 것이다.

6.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려면, ‘육의 한계선’까지만 만든다. 만일 ‘마음의 한계선’까지 만든다면, 육이 다 못 돌아 다닌다.

7. <영의 세계>는 ‘영의 한계선’과 ‘영의 마음과 생각의 한계선’까지 만들어 놓고 ‘영’이 사용한다.

8. ‘영의 생각의 한계선’을 이해하고 추측하려면, 이렇게 해라. ‘영의 생각의 한계선’은 ‘네 눈으로 쳐다보는 범위’와 같고, ‘네가 생각하는 거리와 크기’와 같다. 그러니 그 범위가 얼마나 넓고, 그 거리가 얼마나 멀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크겠느냐.

9. 선생이 하나님과 성자께 의논하면서 말하기를 “월명동을 멋있게 개발해 났는데, 이제 저는 불과 몇십 년밖에 못 쓰겠어요.” 했다. 이에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걱정 말아라. 하늘나라에 가면 있으니까...” 하셨다. “천국의 것은 얼마나 크게 만들어 났습니까?” 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은 그 크기를 ‘육신의 한계선’까지 만들었지만, <천국의 것>은 ‘마음과 생각의 한계선, 영의 한계선’까지 만들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겠느냐. ‘영’으로 다니니, 다 다닐 수 있다.” 하셨다.

10. <천국의 것>은 ‘눈으로 쳐다보는 시야’만큼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육신이 세상에서 산과 들과 대지를 쳐다보는 시야만큼이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한계선’만큼 만들었다고 하셨으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엄청난 크기다.
11. <이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과 생각의 한계’만큼 만들어 놓고 써야 만족하다.
12. <천국>에서도 ‘자기 영혼의 생각의 한계선’만큼 만들어 놓고 써야 만족하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생각의 한계선’만큼 천국을 만들어 놓고 만족하며 쓰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의 한계’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아라. <지상의 것>은 ‘삼위의 생각의 한계’만큼 ‘지상’에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지상이 얼마나 큰지 보아라. ‘천지 만물’이다. 육신의 세계인데 그 정도로 크다. 그러니 <영의 세계>는 얼마나 크겠느냐. <육의 세계, 지상>은 <영의 세계>보다 훨씬 작다. <영의 세계>는 ‘영’이 제재받지 않고 다닐 정도이니, 얼마나 크겠느냐.
14.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주와 지구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았어도 ‘인생들의 각자 행위와 한계’에 따라 그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영의 세계>도 크게 창조해 놓았지만, ‘영의 행위와 한계’에 따라 그 주관권에서 산다.
15.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자기 시야’대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한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영의 세계의 존재물들>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서, ‘자기 영의 행위와 한계’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크게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 하기도 하고, 있다 하기도 하고, 천국을 봤어도 크게 보기도 하고, 작게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도 크게 보기도 하고, 작게 보기도 하는 것이다.
16. <이 세상>도 배운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와 같이 <영계>도 배운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인다. ‘자기 실력과 사명’에 따라서 알고 보고 살아간다.
17. 타인의 영은 자기를 못 보는데, ‘영의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타인의 영을 본다.
18. ‘자기 영의 실력’은 ‘육신’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19. ‘영’은 땅속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물속에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
20. <육계>도 <영계>도 ‘창조자 하나님이 정한 법’으로 통치하신다.
21.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시간이 너무 거침없이 가는 것을 보고 “내가 1분을 가지고서 뭘 하라? 1분 가지고는 할 것이 없다.” 했다. 그러는 동안 10분이 훌쩍 흘러갔다. 역시 10분 가지고도 특별히 할 것이 없었다. 이때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의 축복>을 받고 산다. 그러나 할 일이 없으면, 그 시간이 무용지물이다. <할 일>이 축복이다.’ 깨닫고 기도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잡아도 그 시간을 쓸 ‘할 일’이 없으니, 시간이 자꾸 가 버리고 사라진다고 기도했다. 이때 성자에게 잠언을 받았다.
22. 누구에게든지 <시간의 축복>을 주었다. 그러나 <할 일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주지 않았다. 그 단계부터는 저마다 ‘노력’해야 된다. ‘자기 책임’이다. 그에 따라 ‘대가’를 얻는다.
23. 시간은 쌓아 둘 수 없다. 자꾸 제시간만큼 시간은 흘러간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고, 할 일을 해도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을 쓸 ‘할 일’이 없는 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다.
24. 짧은 시간에 ‘가장 큰 것’을 남겨라. 곧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남겨라. 그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큰 일’이다.
25. <귀하고도 귀한 시간>을 ‘육신’만을 위해 쓴다. 그 <황금 시간>을 ‘육신’만을 위해 쓰니, <은 같은 시간>이 되었다.

‘영’에게도 남는 것이 없다. 그 <귀한 황금 시간>을 ‘영’을 위해 <금>같이 써서 그것이 영원히 남아져 ‘영’이 영원히 누리게 하여라.

26. <황금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와 같이 쓰니, 정말 황금 시간이다. 그리고 내게 영원히 남아진다.

27. <시간>은 저금도 안 되고, 돈이나 황금같이 묶어 놓을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시간을 황금같이 써서 남겨 놓으면, ‘육’이 일생 동안 두고두고 쓰고, ‘영혼’까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쓴다.

28. <시간>은 ‘할 일의 자료’다.

29. 매일 유수같이 흘러가는 <황금 같은 시간>에 ‘육’을 가지고 ‘영원히 남아지는 영의 일’을 하면서 써라.

30. <황금 시간>도 ‘쓸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31. <황금 같은 시간>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황금 같은 일>에 써라.

32. <시간>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지만, 그 <시간>을 가지고 ‘할 일’을 해 놓으면 평생 남아져 결국 ‘자기 육’이 쓰고, 영에 관한 것은 영원히 남아져 결국 ‘자기 영’이 쓰게 된다.

33.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놓기에 따라 <황금 같은 시간>을 귀하게 쓰기도 하고, 천하게 쓰기도 한다.

34. <시간의 축복>은 누구나 다 받았다. 하지만 <할 일의 축복>은 ‘자기 노력’에 의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2014년 6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어려운 산길을 돌고 돌아 숲을 헤치고 와서 보니, 옆에 잘 닦아져서 다니기 쉬운 길이 있었다.

2. 떠날 때에 ‘좋은 길’이 있는지 더 확인하고 떠나라.

3. 시작할 때 잘못하면 끝까지 고생이다.

4. 고생되어서 그렇지, 어려운 길로 가도 목적지에는 가게 된다.

5.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도록, 목적지에서 얻을 것을 더 찾아보아라.

6. 목적지에서 깊이 찾을수록 귀한 것이 있다.

7. 어디를 가나 ‘좋은 것’은 사람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다.

8. 보화는 제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곳’이었으며,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이었으며, ‘깊은 곳’이었다.

9. 사람의 눈에 안 띄고, 사람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일수록 <수정 돌>과 <각종 보석>이 하나하나 정리되어 있었다. 주인 없는 보화였으니, ‘찾아가는 자의 것’이었다.

10. 보화는 숨겨져 있었다. 찾았다. 그랬더니 결국 찾았다.

11. 깊은 보화는 ‘육의 눈’으로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영의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었다.

12. 보화는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제 것으로 삼으려고 몰려든다.
13. <같은 성경 말씀>도 ① 깊이 보면 ‘포도송이’로 보이고, ② 겉으로 대충 보면 ‘잡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보인다.
14. <똑같은 성자의 계시>도 ① 깊이 기도하고 깊이 읽으면 ‘금덩이’로 보이고, ② 깊이 안 보면 ‘은’같이 보이고, ③ 그냥 글만 보면 ‘동’같이 보인다.
15.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역사>가 왔어도 ① 알고 깊이 참여하고 같이 행하는 자는 ‘금’으로 알고 미쳐서 따르고, ② 겉으로 보는 자는 ‘은’같이 보고 그 정도만 따르고, ③ 불신하는 자는 ‘돌’로 보고 배척한다. <자기 마음과 행실>에 따라 보고 대한다.
16. 성자는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에 따라 ‘일’을 맡기시거나 안 맡기신다.
17. 기도를 깊이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잡나무 열매’와 같아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18. 깊이 기도하면, ‘포도송이’와 같아서 하나님께 상달된다.
19. <똑같은 말씀>도 심혈을 기울여 전하지 않으면, 진수성찬을 식은 후에 맛없게 주는 것과 같다.
20. ‘온전한 자’에게 ‘온전한 것’을 맡긴다.
21. ‘온전한 자’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받게 된다.
22. 은혜 받고 성자와 일체 되는 데는 ‘장소와 환경’이 상관없다.
23.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나 자기가 ‘성자의 뜻’을 지켜 행해야 된다.
24. 어디에서나 온전하게 하면 그것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성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25. <자기 시간> 뺏기면, 자동적으로 <사탄 시간>으로 넘어간다.
26. ‘더 좋은 것’은 ‘더 좋은 생각과 행실’에서 나온다.
27. ‘육신의 행위’대로 ‘영적 결실’이 결정된다.
28. <똑같은 것>을 봐도 ‘영’으로 보면 제대로 보인다. ‘육’으로 보면, 한 단계 낮게 육의 것으로 보인다.
29. <사람>도 ‘영’으로 보면 그 가치가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으로 보면 한 단계 낮은 단계로 보인다.
30. <금>도 깊이 보면 ‘금’으로 보이고, 차원 낮게 보면 ‘은’으로 보인다.
31. 깊이 보면 ‘자기 것’으로 보이고, 차원 낮게 보면 ‘남의 것’으로 보인다.
32. 보고 행하기에 달렸다.
33. <성자>도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전능자’로 보이고 ‘자기가 찾던 자’로 보이고,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자기가 그토록 찾던 연인’으로 보인다.
34. <성자>를 ‘절대 사랑’으로 대하고 보면, 완전히 달리 보인다. 깨달음도 다르다. 이는 ‘환각 작용’이 아니다. ‘정상

작용'이다.

35. <성자>를 '절대 사랑'으로 귀히 안 보면 50년, 80년을 믿어도 '보통 한 사람'으로 보인다.

36. 시대 말씀을 듣고 <성자>를 제대로 보아라. <주>를 제대로 보아라. 그러면 '양옥 집'이 '빌딩'으로 뒤바뀌어 보이듯, 제대로 보인다.

37. <성자>는 전능자다. 창조자다. 인간이 아무리 크고 높게 봐도, 아이가 보는 격이다.

38. <성자>를 한마디로 증거하면, 지금까지 온 인류의 사람들이 지구 세상에 해 놓은 것을 다 합쳐도 성자가 하신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39. 사람은 '별 하나'도 못 만들었다. 사람은 '자기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한다.

40. <성자>는 '지구'라면, <인간>은 '모래 한 알'과 같다.

41. 제대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42. 지구 세상 70억 명 모두 <성자>가 손대지 않으시면,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다.

43. 인간은 누구나 대지 위에 뛰는 '매뚜기 한 마리'에 불과하다.

44. 깨달아야,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벌레'와 같음을 알게 된다.

45.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로 말미암아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변화시켜 '신'과 같이 되게 하여 '천국'에 가게 해야 된다.

46. '애벌레같이 땅에서 붙어서 끝나는 인생', 그리고 '나비같이 변화되어 하늘로 가는 인생', 이렇게 두 인생으로 갈리게 된다.

47. <성자와 주>를 깊이 보고, 깊이 알고, 같이 행하며 사는 자는 '모래사막을 깊이 파서 샘이 나오게 하여 쓰는 자'와 같고, <성자와 주>를 차원 낮게 보고 행하며 사는 자는 '모래사막 위에서 허덕이며 사는 자'와 같다.

48. 하루를 살아도 <하늘>은 '높이' 보고, <인생>은 '깊이' 보고 생각하며 살아라.

49. 깊이 보고 생각하고 행해야 당장 얻고 살게 된다.

50. 사람도 깊이 봐야 그 사람을 잘 알게 된다. 겉으로 보면 귀한 사람도 보통 사람으로 보게 된다.

51. <인간 보화>는 사사건건 끝까지 깊이 보기 전에는 모른다.

52. <마음의 보화>는 눈으로 안 보인다.

53. <인생>도 '겉 보화', '속 보화'가 있다. 고로 깊이 봐야 '속 보화'를 보게 된다.

54. 어떤 사람은 '겉 보화'는 찬란한데 '속 보화'가 별 볼 일 없다.

55. '겉 보화'는 <육>이요, '속 보화'는 <영>이다.

56. <인간 육체>는 ‘하늘의 큰 보화’를 다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늘의 큰 보화’는 <마음, 정신, 혼, 영>이 가지고 있다.

<2014년 6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에 속한 형체>와 <영에 속한 형체>를 창조하셨다. <땅에 속한 형체>는 ‘육신’이고, <하늘에 속한 형체>는 ‘혼과 영’다.

2. ‘씨’를 뿌리고 ‘곡식’으로 거두듯이, ‘육’으로 뿌리고 ‘영’으로 거둔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다.

3. <하나님>과 <성자>를 믿고, 그가 보내신 <주>를 믿고 구원받으면, ‘육이 받는 영광’이 다르고, ‘혼과 영이 받는 영광’이 다르다.

4. <육>은 ‘육신 일생 동안 영광’이고, <영>은 ‘영원한 영광’이다.

5. <썩을 것>은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육’이다. <썩지 않을 것>은 ‘영’이다.

6.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곧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다.

7.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은 ‘<육신>이 행한 대로 <영>이 그 행위를 받아 변화되어 영광을 누린다.’라는 말이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말한 <죽은 자의 부활>이다.

8.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했는데, 곧 ‘<육>이 행한 것을 <영>이 받아서 변화된다.’라는 말이다. 곧 육신이 살아나는 <육체 부활>이 아니라 육의 행위를 받고 변화된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9. ‘혈과 육’, 곧 <육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썩는 육신>은 <썩지 않는 영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

10. <육신>은 ‘땅’에서 ‘전능하신 성자’를 맞고,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면, ‘육신의 행위’에 따라 <영>이 변화된다. 이것이 <부활>, 곧 <영의 부활>이다.

11. ‘육신의 행위를 통해 변화된 영’이 ‘성자’를 맞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휴거>다.

12. 성경을 읽어 보면, 모두 <영의 부활, 영의 휴거>임을 알게 된다.<영>이 천국에 간다.

13. 영적으로 차원이 낮은 육적인 자들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한다. 육신이 천국으로 휴거된다.’ 한다. 몰라서 그렇다. 성경을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4. <휴거>가 아무리 급해도 <휴거>에 대해 모르면, 급히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다.

15. 고로 <휴거>를 막연하게 선불리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

16. <휴거>를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제대로 배우기.’다.

17. 빨리 휴거되려면, <휴거>에 대해 제대로 알도록 제대로 배우는 것이 절대적이다.

18. 호랑이에 대해서는 호랑이 족속이 설명해야 이해가 잘되고, 독수리에 대해서는 독수리 족속이 설명해야 이해가 잘

된다.

19. 토끼나 다른 짐승들이 호랑이에 대해 설명하니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날짐승들이 독수리에 대해 설명하니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20. 이와 같이 <휴거>에 대해서도 성자와 분체에게 배운 섭리인들이 설명해 주며 외쳐야 된다.

21. <휴거>는 ‘인간’이 한다. 그러나 <휴거 역사의 주인>은 창조자이며 절대신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다. 고로 <휴거>에 대해서도 ‘휴거의 주인’이 설명해야 제일 잘한다.

22. <휴거>는 ‘변화’다.

23. <휴거>는 실상 ‘육과 혼과 영을 변화시키는 역사’다.

24. <휴거>는 어느 특별한 때 이루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육과 혼과 영을 변화시켜야 하니, ‘생활’하면서 이룬다.

25. <휴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정한 때’에 한다.

26. 하나님이 정하신 <휴거 때>가 와야 <휴거>가 시작된다.

27.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타락한 인류를 정화하면서 구원 역사를 펴 오셨다.

28. 구약 이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절대신 삼위일체 성자’와 일체 되어 나타났다. ‘성자’는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신약 말씀, 곧 자녀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전하여 모두 믿고 따르게 했다. ‘예수님이 전하는 성자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구원했다. 이 역사가 <2000년 신약 역사>다.

29. 그러나 그때 당세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무지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이단’이라 하며 핍박했다. 그러다 그 시대 관원들과 함께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

30. 하나님과 성자는 ‘보낸 자, 구원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와 ‘그 시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서 구원받게 하셨다.

31.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온다.” 말씀하며 ‘재림’을 약속하셨다. 그 역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대로, ‘신랑’으로 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데리고 가듯 하는 <혼인 잔치 역사>다. 계시록을 보면, 그 역사는 <1000년 왕국 역사>라고 했다.

32. 약속하신 그때가 <성약 재림의 때>이며, 그때 <휴거 역사>가 시작된다.

33. <육>이 ‘성자가 보낸 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바로 믿고 사랑하면, 그 <혼과 영>은 성자를 맞고 ‘신부’로 변화된다. 이 상태에서 <육>이 더욱 말씀을 행하고 온전하게 하면, 그 <혼과 영>은 지상에서 육과 함께 있으면서 더욱 변화되고 완성되어 ‘휴거의 영’이 된다. 그러다가 <휴거 때>가 되면 ‘성자 본체’를 맞고 휴거된다.

34. <휴거>는 ‘변화’다. ‘만들기’다.

35. 휴거되려면,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야 된다. 곧 휴거되려면, ‘자기 육’을 통해 ‘자기 혼과 영’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곧 ‘육’이 <시대 휴거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육’도 한없이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자기 영’도 한없이 변화시키고 만들어야 된다.

36. 휴거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 맞기.’다. ‘그를 100% 믿고 맞기.’다. - 그다음은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배우기’다. - 그리함으로 ‘그를 통해 <구원의 근본자, 성자>를 100% 알고 믿고, 성자와 일체 되기.’다. - 그다음에 ‘말씀을 행하면서 성자와 분체 사랑하기.’다. → 그러면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고, 영은 ‘휴거의 영’이 된다.

37.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고전 15장 46절)

38. <신령한 사람>은 ‘영’이다. <육의 사람>은 ‘육’이다.

39. <육>이 먼저 ‘땅’에서 휴거되고, 그다음에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는 것이다.

40. <중요> <휴거>는 ‘단계별’로 ‘과정’을 거치면서 된다. 휴거되려면 <휴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알려면, ‘시대 보낸 자’를 알고 100% 믿어야 된다. 그는 <신부의 조건>을 세우고 성자를 제일 먼저 ‘신랑’으로 맞은 자로서 ‘성자의 육’이며 ‘성자의 분체’다. 성자는 그를 통해 <육과 혼과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신다. 고로 휴거되려면, 가장 먼저 그를 100% 믿고 그와 일체 돼야 한다. 성자는 그를 통해서 성자가 다시 오신 것을 알려 주신다. * 고로 첫 번째로는 ‘성자가 보낸 자’를 100%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을 행하며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 이렇게 <육>이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이 ‘육신이 땅에서 휴거된 것’이다. 그러면 <육>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면서 영광을 누린다. * 이 상태에서 <육>이 더욱 말씀을 행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마치 계단을 오르듯, 지속적으로 차원 높여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온전히 변화시킨다. → 그러면 ‘육의 행위’에 따라 <영>도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그리함으로 <영>은 ‘하늘’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41. <휴거의 비밀> 중의 하나는 ‘변화’다. ‘자기 영 만들기’다.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변화시켜 만들기’다.

42. <육>이 시대 보낸 자를 100% 믿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상태에서 말씀을 행하며 <자기 영>을 만드는 것이다.

43. <영>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휴거되지 못한다.

44.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알아야 된다.

45. 만드는 자만 안다. 화장하여 예쁘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멋있게 꾸미는 것을 생각하면서, <육>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자기 영>을 만들어야 된다.

46. 먼저는 <자기 육>이 마음·정신·생각·사고·행실을 온전히 하고,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영>을 빛나고 아름답고 선하게 온전히 변화시키며 ‘하늘나라에 속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47. <육신>이 알고 행하는 대로 <영>이 변화된다.

4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 무지를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최고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다. 고로 ‘시대 보낸 자’를 만나 그를 100% 믿고 따르며, 그가 전하는 성자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49. <자기 영>을 ‘신의 차원’까지 변화시켜야 된다.

50. 한 번에는 변화되지 않는다. 아무리 유능해도 한두 번에는 <자기 영>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
51. 운동선수들도 천 번, 만 번, 수만 번씩 연습해서 금메달을 땀다.
52. 하찮은 볼펜도 수십 단계로 가공하고 변화시켜 만든다.
53. 자동차도 땅속의 광석에서 철을 캐내어 용광로에 녹이고, 수십 단계를 거쳐서 철판을 만들고, 자동차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수백 단계를 거쳐 변화시켜서 만든다.
54. <휴거>도 그러하다.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마음·정신·행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자기 혼과 영>을 단계별로 변화시키며 '휴거의 영'으로 만드는 것이다.
55. <휴거의 영이 되는 법>은 '자기 만들기'다. 이것이 <휴거의 비밀>이다.
56.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뇌의 생각>이 변화된다. 생각이 변화되니 <행실>이 변화되어 행하게 된다. <육>이 온전히 행하니 <혼과 영>도 변화된다.
57. 생각하는 대로 <행실>이 변화되고, 육이 행하는 대로 <영의 형체>가 만들어진다.
58. <생각>이 변화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의 내용>에 따라서 <육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육의 행실>이 변화되고, 행하는 대로 <혼과 영의 형체>가 변화된다.
59. '여자의 X염색체'와 '남자의 Y염색체'가 만나면, 성별이 <남자>로 결정되고, '여자의 X염색체'와 '남자의 X염색체'가 만나면, 성별이 <여자>로 결정된다.
60. 이와 같이 인간이 '어느 시대,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자녀>, 혹은 <신부>로 만들어진다. <신약 자녀권 말씀>을 듣고 행하면, '육의 생각, 행실, 혼과 영의 형체' 모두 <자녀급>으로 변화된다. 이 시대에 성자가 이 시대 분체를 통해서 주시는 <성약 신부권 말씀>을 들어야 '육의 생각, 행실, 혼과 영의 형체' 모두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홀연히 변화된다.
61. 지구 세상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말씀, 곧 신랑 되신 성자의 말씀을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듣고 행해야 그 <영>이 '사랑의 형체'로 변화되어 <창조 목적>을 이룬다.
62. <섭리사의 말씀>만 가져다가 다른 데서 전한다고 해서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죄만 짓게 된다. 거 짓되고 야비한 자들은 <섭리사의 말씀>만 갖다가 전도하는 데 쓰지만, 모두 <휴거>와는 상관없다. 반드시 '보낸 자'를 믿고 '휴거 역사'로 와서 그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야 휴거된다.
63. '육신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영의 형체>가 만들어진다.
64. '자기 영'을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만들어 휴거시켜 <천국 황금성>에 가게 해라! 그러려면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이성을 끊고, 음란물을 끊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세상 썩는 문화를 끊고, 만화와 소설을 끊고, 육의 쾌락과 흥분을 일으키는 육적인 것들을 끊어라. 그리고 독한 마음을 먹고 날마다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영원한 사랑의 영'으로 변화시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라.
65. 변화되다가 말고, 만들다가 말면 휴거될 수 없다. <휴거의 영>이 되기까지 만들어야 된다.
66. <세상 만물>도 <물건>도 만들기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존재한다. 나무로 '의자'를 만들면 나무가 '의자'로 변화되어 존재하고, 나무로 '집'을 만들면 나무가 '집'으로 변화되어 존재한다.

67. ‘자기 영’도 만들기에 따라서 변화되어 존재한다. 육신이 절대 성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면서 만들기에 따라 <영의 형체>가 결정된다. ‘절대 만들기.’다!

<2014년 6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68. 휴거되려면 ‘첫째, 보낸 자를 100% 믿고 맞이하기. 둘째, 그를 통해 시대 말씀 듣기. 셋째, 그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영>을 변화시키고 만들기. 넷째, 만들면서 성자 사랑하고 본체 사랑하기.’다.

69. <휴거의 비밀>은 ‘변화’와 ‘만들기’다. 자기를 만들면서 ‘성자와 본체 사랑하기’다.

70. 성자와 본체를 99%만 사랑한 자들 중에서 그 영이 <신부 형체>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71.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로 1%라도 빼면 사탄이 개입하니 안 된다.

72.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사랑’을 창조하셨다. <이성 향락>을 누리고 끝나라고 ‘사랑’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73. <육신>이 이성 향락과 쾌락이나 즐기고 성삼위와 그 본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은 보나 마나 ‘짐승의 형체’가 되고, ‘상상도 못 하는 흉측한 형체’가 되어 말로는 다 표현을 못 하게 변질돼 버린다.

7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100%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서 사탄을 100% 분립하여 멸망시키는 자다.

75. 아예 속을 보이지 말고 10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라.

76. 사랑의 천국인 영원한 <천국 황금성>에 가려면, 100% 사랑해라.

77. 올해는 <성자 사랑의 해>다. 100% 행하고, 100% 사랑하고, 100% 변화되고 만들어 휴거되라는 것이다.

78. 자기를 흠 없이 만들어, 자기 영을 ‘흠 없이 빛나는 신부’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 황금성>은 영원히 삼위를 사랑하며 먹고 누리며 사는 세계다. 자기 영만 ‘흠 없이 빛나는 신부’로 만들면, <천국 황금성>에 가서 다 누린다.

79. 무지한 구시대 저 기성의 사람들은 <성약역사>는 성경에 없다고 하며, 비난한다. 구약의 율법 속에 <신약역사>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한다는 예언은 있었다. 그러나 율법 속에 <신약역사>,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말씀은 없었다.

80. 그러나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니, 새 역사는 ‘하나님’만 알고 ‘보낸 자, 예수님’만 알았다.

81. 하나님과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니, 예수님을 맞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만 ‘신약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

82. <성약역사>도 그러하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온다.’ 하며 재림을 예언했다. 이는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으로 ‘성자가 다시 오셔서 행하시는 새 역사’를 두고 한 말이다.

83. ‘오는 자, 성자’만 알고, ‘그가 보낸 사명자’만 안다.

84. 또한 이 시대 보낸 자를 맞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만 ‘성약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85. 무지한 구시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과 성자가 사명자를 통해 전하시는 <새 역사의 새 말씀>만 듣고 가라!

86. <월명동>은 ‘자연성전’으로 만들기 전까지 험악하고 외롭고 쓸쓸한 골짜기였다.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썩은 골짜기였다. 20여 년 동안 수십 단계로 만들면서 변화시키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상징하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성전’이 되었다.

87. 월명동을 만들듯 자기를 만들어라. 개발해라! 사탄에게 뺏긴 <마음의 땅>을 ‘의’로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하시는 생명의 전’으로 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뇌>는 ‘가시덩굴’이 되고, <마음>은 ‘잡초밭’이 되고, 그 <영>은 ‘무서운 형체’가 되고 만다.

88. <성자의 큰 계시 중의 하나>는 “사람은 만들기에 달렸다.”이다.

89. 자기를 만들되, 성자가 분체를 통해 코치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곧 성자가 분체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만들어라.

90. <자기 육>이 성자가 분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자기 영>을 만들어 그 <영>이 ‘하늘의 신부’가 되어 휴거되면, ‘영원한 사랑 덩이’가 되어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그 영의 아름다움과 빛’이 <권세>가 되어 영원히 누린다. 천국에서는 <영>이 만들어진 대로 아름답고, 만들어진 대로 빛난다. 그 ‘아름다움과 빛’으로 인해 <영의 권세>를 나타낸다.

91. <휴거>에 대해 ‘아는 자’만 자기를 만들고 변화시켜 잘되고 흥하게 된다. ‘모르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것인지 철저히 깨닫고, 가장 먼저 <휴거>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배워라.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상과 구조’를 영원히 후회 없이 잘 구상하고 창조하셨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들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육>은 땅에서 사랑하며 살고, <영>은 천국에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때문이다.

2. 인간이 타락될까 봐 ‘인간의 형상과 구조’를 차원 낮게 만들었다면, 인간이 구원받아 그 <영>이 하나님께 가더라도 ‘하나님의 상대적 형상’이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아예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과 구조’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최대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3.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어 그 <영>이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는 그중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 영들이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어 영원히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사랑하기 위함이다.

4. 인간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이 서로에게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인간을 보기 싫게 짐승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그중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영>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만족하게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우려하여 인간의 형상을 짐승과 비슷하게 만들지도 않으셨고, 부족하게 만들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후회 없게 만족하게 만드셨다. 정말 잘하셨다. (아멘.)

5. 인간이 ‘성적 타락’을 할까 봐, 인간의 지체를 짐승 비슷하게 구상하여 만들지 않으셨다. 인간의 형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타락’을 하지만, 그중에서 구원받은 자는 <육신>을 따라서 <혼과 영>이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존재하니, 영원히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사랑하기 위해 100%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만일 ‘인간의 육신의 형상’을 짐승 비슷하게 창조했다면, 육

에 따라 변화된 ‘영’도 그와 같은 형상이기에 천국에서 사랑하며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37억 년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다시 창조할까?’ 고민하실 것이다. 타락한 자는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사망으로 가게 하더라도, 온전한 자들에게 희망을 걸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최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6. 섭리사를 나갈 자들을 생각하고 걱정되어 ‘말씀의 핵’을 안 가르쳐 주고 길렀다면, 섭리사에 남은 사람들은 선생과 일체 되었어도 뇌의 차원이 낮아서 같이 살아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답답해도 모두에게 <말씀>을 100% 다 가르쳐 주고 길러야 된다. 사망으로 간 자는 사망으로 가서 악평하더라도 <말씀>을 100% 다 가르쳐 줘야 후회가 없다. 선생은 혹여 섭리사 말씀을 다른 교파에서 가지고 가서 쓰더라도, 섭리사에서 말씀을 듣고 다른 데 가서 전하더라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다. 섭리사에서 말씀을 듣고 빗나간 자는 말씀을 들었어도 사망으로 갔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말씀>만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보낸 자>를 100% 믿고 그와 일체 되어야 구원받는다.

7. 누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 구원받고 남은 자들도 문제가 된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으니, 그 육도 혼도 영도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만족하게 살 수 없게 된다.

8.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싹이 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새가 쪼아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걱정되어 씨를 덜 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여 결국 농부에게 손해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안 나는 것이 있더라도, 그 씨를 새가 쪼아 먹을지라도, 마음껏 다 뿌려야 된다. 그래야 만족한 농사를 짓게 된다.

9. 부모가 자녀에게 ‘가정의 비밀’을 말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며 80%만 이야기해 주면, 그쪽으로 지능이 80%만 발달되어 부모와 심정이 일체 되지 않는다.

10. <처음>에는 안 돼도 <과정> 중에 되어 가면서 성공하게 된다.

11. 부모가 ‘가정의 경제’에 대해서 속 이야기를 다 해 주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알게 되어 더 충성하여 부모와 일체 된다. 그러나 어떤 자녀는 놀라서 오히려 말썽을 피운다. 그래도 부모가 아는 자녀를 데리고 더욱 일체 되어 가정 역사를 펴야 후회가 없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창조 때 천사들에게 ‘창조의 비밀’을 모두 이야기하셨다. 그 말을 듣고 안 맞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갔다.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과 일체 된 천사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데리고 같이 일해 오셨다. 타락한 천사는 결국 그 자체가 지옥이 되었다.

12. 예수님 때도 말씀을 듣고 반대한다고 해서 <복음>을 일부만 전하지 않았다. 모두 다 전하여 따라올 자는 와서 만족하게 하셨다.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싸웠다.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다 전하면서, 반대하는 자들과 의의 싸움을 하면서 역사를 펴 왔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말씀을 듣고 악평하고 반대할 자들을 생각해서 <복음>을 일부만 전하겠느냐. 그러면 따라오는 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뜻을 못 펴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계속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반대하고 악평하는 자들과 의의 싸움을 하면서 역사를 펴 가는 것이다.

13. 농부가 퇴비를 하는데 ‘잡초’가 거름을 빨아 먹으니 아깝다고 안 주면, ‘곡식’도 거름을 못 먹어서 자라지 못한다. 농부가 퇴비하면 ‘잡초’도 거름을 먹고 자라고, ‘곡식’도 거름을 먹고 자란다. 농부가 ‘잡초’를 뽑아 주고, ‘곡식’은 더욱 퇴비하여 가꾼 후에 추수 때 추수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14.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사람을 잘 보고, 빼내서 가르쳐야 된다.

15.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선악을 분별한 다음에 가르쳐야 된다.

16. 아무나 <시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쪼개서 가르쳐야 된다.

17. 생명의 길로 간 자들의 영은 극적인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사망의 길로 간 자들의 영은 극적인 악인이 되어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짐승의 형상>이 된다.

<2014년 6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
2. <말>은 기계의 나사와 같지 않아서 ‘의미 전달’만 되면 들어간다.
3.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는 <육체>와 <혼체>다. ‘마음·정신·생각’에 따라서 <육체>가 행하고, <혼체>가 행한다는 말이다.
4. <혼체>가 <육체>를 떠나서 따로 활동해도 <육체>는 ‘마음·정신·생각’과 함께 움직이며 기능할 수 있다. ‘마음·정신·생각’은 뇌에서 작동하니, 뇌만 있어도 <육체>는 존재한다.
5. ‘뇌’가 없으면 <육체>는 존재하지 못한다. ‘뇌’가 없으면, <육체>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기능을 못 한다.
6. 뇌는 기계의 모터와 같다. 모터가 없으면 기계가 기능을 못 하듯이, ‘뇌’가 없으면 <육체>는 기능을 못 한다.
7. ‘뇌’에서 <자기 육체>를 100% 움직이게 한다.
8. <육체>를 가지고 <자기 혼체>를 좋게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쁘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9. <육체>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에 따라 움직인다. <육체>는 ‘자기 마음·정신·생각’으로 <자기 혼체>와 교통한다.
10. 몸의 신경들이 ‘자기 뇌’로 연결되어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육>과 통하듯이, <자기 혼과 영>도 ‘자기 뇌’로 연결되어 <자기 육>과 통한다.
11. <자기 혼과 영>이 ‘자기 뇌’, 곧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 육>과 통하지도 않고, 전달할 것을 전달하지도 못한다.
12. <뇌> 곧, <마음·정신·생각>은 ‘나무뿌리’와 같고, <혼>은 ‘나무’와 같고, <영>은 나무에서 열린 ‘열매’와 같다. <뇌>와 <혼과 영>은 상호 교통하며 교류한다.
13. <육신>이 죽을 때는 제일 먼저 ‘뇌의 기능’이 죽는다. 그다음에 신경과 각 기관이 기능을 못 하니 죽는다. 그러면 ‘육신의 마음·정신·생각’은 거기서 끝나고, 그동안 육신이 행한 것과 그 마음은 <혼>에게 가서 육신의 행위대로 <혼>이 가지고 있게 된다.
14. <육>이 죽으면 ‘뇌의 기능’도 끝나기에 ‘육신의 마음·정신·생각’은 더 이상 기능을 못 한다. 그러나 <혼>이 ‘육신의 마음·정신·생각’을 이어받아서 ‘제2의 육’이 되어 가지고 있다. 혼과 영만 살아 있으면 혼과 영이 ‘육의 마음·정신·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육이 살아 있을 때의 ‘마음·정신·생각’과 똑같다.
15. <혼체>는 ‘영의 몸’으로서 <육체>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혼의 몸’은 ‘육의 몸’과 같지 않다. ‘혼의 몸’이다. 이는 마치 <나무뿌리>와 <나무>는 한 나무이지만 ‘모양과 형상’은 다르게 생겼듯이, <육체>와 <혼체>는 한 몸이지만 ‘모양과 형상’은 다르다. <혼체>는 ‘영에 속한 몸’으로서 육체같이 손과 발, 각종 지체, 눈, 코, 입, 귀, 얼굴, 머리, 혼의 뇌가 다 있다. 육체 같은 살은 아닌데, 혼체로서 살이 있다. 혼체로서 기능을 한다.
16. ‘혼체의 살’은 ‘육체의 살’보다 더 부드럽다. 그런데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혼체의 살’이 역세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다. <육의 행위>대로 ‘혼체의 개성’이 각양각색이다.
17. 어떤 혼체는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미인이며 빛난다. 그러나 어떤 혼체는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무섭고 흉측하다. <자기 육의 행위>가 악하니, 그 혼체가 무서운 짐승같이 변하고 험상궂은 얼굴이 된 것이다.

18. <자기 육의 행위>와 <자기 혼의 행위>에 따라서 ‘혼체와 영체의 형상’이 변화된다.

19. 세상의 만물도 그러하다. 씨앗의 품종에 따라서 각종으로 형체가 바뀐다. 이와 같이 <자기 육과 혼의 행위>에 따라서 그 ‘혼체와 영체의 형상’이 각종으로 바뀐다.

20. <육>이 독재주의자, 살인자, 전쟁 도발자, 폭력자라도 ‘육의 얼굴과 육의 모습’은 일반 사람과 같이 생겼으니, 겉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그러나 <육의 행위>에 따라 ‘혼체와 영체의 형상’이 바뀌니, 육이 악한 짓을 많이 한 혼체와 영체의 얼굴과 몸은 짐승같이, 괴물같이, 뱀같이, 벌레같이 흉측한 형체로 변해 버렸다. 고로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에 가 보면 <자기 육의 행위>대로 ‘혼체와 영체’가 바뀌어 살아가니, 속일 수가 없다.

21. ‘혼과 영’은 <자기 육의 행위>대로 변한다. <의로운 육의 행위>로 ‘ 좋게 변한 혼체와 영체’와, <악한 육의 행위>로 ‘나쁘게 변한 혼체와 영체’는 같이 살 수 없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들이 같은 영계, 같은 위치에서 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하셨다. <자기 육의 생각과 행위>대로 그 ‘혼체와 영체’가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살게 하셨으니, 어떤 혼체와 영체는 혼자서 살기도 한다. 활동은 그 주관권에서 하지만, 개인이 사는 곳을 가 보니 혼자서 쓰는 방이었다. 그 방은 ‘지옥 방, 무저갱 방, 음부 방’이었다.

22. 혼의 세계의 한 곳을 가 보니, <동물원> 같은 곳이 보였다.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괴이한 모양의 흉측한 동물이 보였다. 한 번 보면 충격 받아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육의 악한 행위>대로 그 혼체와 영체가 너무 흉측한 형상으로 변해 있었다. 100% 짐승으로 바뀐 혼과 영도 있었다. ‘악한 자의 마음이 저렇게 생겼다.’ 하며 <비유와 상징>으로 보인 것이 아니었다. ‘악한 마음·정신·생각과 행위에 따라 그 혼과 영이 <실제> 짐승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 짐승은 도대체 이 세상 누구의 혼과 영입니까?” 하고 성자에게 물으니, 성자는 두 명의 육신을 보여 주셨다. 세상에서 시대 말씀을 부인하고 섭리사를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사명자를 불신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였다. 그곳은 원시인 같은 마을이었는데,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흙과 썩은 물을 먹고 살았다. 그 짐승들 옆에 키가 2~3미터가 더 되고, 얼굴은 말같이 길어서 흉측하게 생겼고, 빨간색과 파란색의 얼룩진 옷을 입은 영들이 1미터가 되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산이 울리도록 괴이한 소리를 날카롭게 내면서 그들이 사는 마을 위로 날아다녔다. ‘귀신들의 마을’이었다. 그곳에 사는 ‘짐승 형체의 혼과 영들’이 그 귀신들을 쳐다보고 숲에서 나왔다. 그 얼굴과 몸은 사자 같았다. 그곳은 산이 둘러싸여 있는 깊은 계곡이었고, 그들이 사는 집은 너털너털한 곳이었는데, 잠시 나와서 몸을 보였다가 다시 그 너털너털한 집으로 들어갔다. 까마득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보았는데, 그 얼굴은 짐승 얼굴이었지만 사람 얼굴과 비슷하다. 그때 그곳을 보면서 ‘음부와 흑암 영계가 저렇구나.’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저 혼과 영은 영원히 좋게는 변할 수 없겠구나.’ 했다. 이미 그 <육의 행위>대로 하나님의 판정을 받고, 끝난 영들 같았다. 나를 힐문하는 자들을 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간구할 때, 성자께서 이 광경을 내게 보여 주셨다.

23. <영의 세계>는 ‘혼’으로나 ‘영’으로 간다. 그러나 ‘영급’이 있기에 나는 상대를 봐도, 상대는 나를 못 본다. <육의 세계>에서는 눈이 마주치면, 직위나 명예나 권력을 막론하고 누구나 상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급수’가 높고 ‘사명’이 높은 자가 자기를 가리면, 상대는 아예 못 본다. 고로 상대의 눈앞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얼마든지 다 볼 수 있다.

24. ‘악한 영’, ‘저급한 영’들은 한계 이상은 못 본다. 소경과 같다.

25.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육신>이 흑인이지만, 그 <영>은 얼굴과 몸이 하얗고 빛난다. <육신의 의로운 행위>로 변화된 것이다.

26. 영계는 체제가 다르다. <자기 육의 마음과 행위>대로 ‘영’이 변화된다.

27.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육의 얼굴>이 백인같이 하얗지만, 영계에서 그 <혼>을 만나 보니 얼굴이 흑인처럼 까맣다. 이야기를 해 보니, 말을 잘 안 하고, 묻는 말에도 몇 마디 대답을 안 했다. 성난 독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좋게 이야기해 주고 바로 떠났다. 그는 얼굴색에 맞춰 찢어진 검은 옷을 입고 으스스대며 다녔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역

사를 펴다가 배신하고 나간 자였다. 나와 섭리사에 많은 고통을 준 자였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성자께서 그 <혼의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이다. 그 <혼의 모습>을 보니 아예 변해 버려서 ‘다시 돌이키기는 힘들겠다.’ 하고, 마음을 달리 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멈췄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편만 돼도 ‘멸망’은 면한다.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아라. 꿈은 계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역사적으로 <꿈>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계시하시며 ‘행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꼭 알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환난’이 일어날 것을 보여 주며 피하게 하시고, ‘땅의 사명자’가 태어남을 알려 주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다.

3. <꿈>은 ‘꿈 영계’라고도 할 수 있다. <꿈 영계>는 ‘혼적 차원의 영계’다.

4. <꿈>에서 보는 존재는 ‘혼체’다. ‘혼’으로 <천국>까지 볼 수 있고, <천국>까지 가기도 한다.

5. <꿈>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꾸게 된다. 첫째, 성자는 <꿈>을 통해 영상을 보이듯 ‘합당한 것들’이나 ‘할 일’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둘째, 성자는 <꿈>에 ‘실제 영의 세계’를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셋째, 뇌 속에서 생각한 것들이 영계에서 현상이 되어 꿈을 꾸기도 한다.

6. 성자는 <꿈>을 통해 계시하신다. 그러나 <꿈>에서 ‘혼’이 보는 것만 ‘계시’가 아니다. <낮>에 ‘육신’이 보고 깨닫는 것도 ‘계시’다.

7.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꿈>에 ‘혼’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시고, <낮>에 ‘육신’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신다.

8. 꿈을 못 꾸다고 계시를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꿈을 흐릿하게 꾸다고 계시를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말아라. 낮에 ‘육신’을 통해 깨닫고 계시를 받으면 된다. 낮에는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면서 ‘생각’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9.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특히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깨달도록 계시하시니,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구해라.

10. 사람에게에는 <육체>, <마음·정신·생각>, <혼체>, <영체>가 있다. 이에 따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의 세계>, <생각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 네 가지로 계시해 주신다. 첫째, <육>은 만지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계시를 받는다. 둘째, <마음·정신·생각>은 손으로 만질 때나 안 만질 때나, 눈으로 볼 때나 안 볼 때나, 귀로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냄새를 맡을 때나 안 맡을 때나 ‘생각’으로 느껴서 계시를 받는다. 셋째, <혼>이 영계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기 뇌>에 전달하는데, 혼이 영계에서 보고 느낀 것이 ‘생각’하거나 ‘영음’이 들리면서 계시를 받는다. 넷째, <영>이 <자기 혼>에게 영계의 것을 전달하면, 혼이 그것을 느낀다. <혼>이 그것을 다시 <자기 육>에게 전달하여 ‘생각’나게 하고 ‘영음’이 들리게 하면서 깨닫게 한다.

11. 이와 같이 ‘계시’는 동서남북 <네 가지 문>으로 받는다. <육의 문>, <마음·정신·생각의 문>, <혼의 문>, <영의 문>이다.

12. 성자는 그때그때 합당한 대로 보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계시’를 전달하신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흐릿하거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성자가 계시하셔도 모른다. 자기가 준비한 만큼 계시가 온다.

<2014년 6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3. <혼의 세계의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본다. ‘혼’으로 봐야 된다. ‘혼’으로 보려면 깊이 기도하고, 혼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을 또렷하게 하면서 신령해야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된다.
14. 육으로 살기에 육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혼과 영으로 살기에 육으로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15. 육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 육으로 안 보이는 <영의 세계>다.
16. <육의 세계>는 ‘지구 세상’ 하나뿐이지만, <영의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 수도 없이 많다. 크게 나누면 <지상 선영계>, <낙원 영계>, <천국>, 그리고 <지상 악영계>, <무저갱 흑암 영계>, <지옥 영계>가 있고, 각 영계마다 더 세분화 되어 수백, 수천 군데로 쪼개져 있다.
17. 이 세상에는 ‘세계 각 나라’가 있다. 각 나라들을 직접 가 보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게 되고, 책으로 보면서 알게 되고, 실력이 있어서 세계 각 나라를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알기도 한다. 이와 같이 <혼의 세계,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누가 가르쳐 주어 배워서 알게 되고, 혼과 영에 대해 배우고 자기 혼과 영을 개발하여 직접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배우고 알기도 한다.
18. <혼의 세계>인 <꿈 세계>를 ‘하나의 꿈’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19. <육계>에 있는 것인데 ‘육의 실력’으로 못 찾는 것도 ‘혼’은 <꿈>에서 보고 찾는다. 혼이니 땅속 깊이 묻혀 있는 것도 찾는다.
20. ‘혼’이 찾은 것을 ‘자기 육’에게 전달하면, 꿈을 깬 후에 ‘육’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찾기도 한다. 그것이 수백억짜리이기도 하다.
21. ‘육신’이 실력이 있으면 세상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실력껏 찾기도 한다. 그러나 ‘혼’이 발달된 사람은 ‘육’이 실력이 있어도 ‘육’이 직접 안 가고 ‘혼’을 보내어 세상을 다니며 찾게 한다.
22. ‘혼’이 찾으면 ‘자기 육’에게 전달하여 ‘육’이 낮에 직접 가서 찾기도 한다. 그러면 더 쉽다.
23. <꿈>은 ‘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여 주신 <꿈>은 그 꿈대로 되고야 만다. 고로 ‘꿈’을 가지고 ‘희망’으로 행해야 된다.
24. <꿈>은 다른 사람이 꾸 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태몽’이다.
25. <꿈>을 무시하면, 꿈을 이룰 수 없다.
26. <꿈>으로도 깨닫게 해 주시니, 성자에게 <꿈>으로 계시를 받았으면 꼭 그 꿈대로 실천해야 ‘해(害)’가 안 되고 ‘유익’이다.
27. 어떤 사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꼭 작고 크게 계시를 보이며 깨닫게 해 주신다. <직감·예감·영감>으로, 혹은 <감동>으로, 혹은 <꿈>으로 계시해 주신다.
28. ‘하나님의 뜻’을 두고 보여 주신 <계시>는 작든지 크든지 예사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29. 선생이 꿔던 <최고의 꿈>은 ‘성자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꿈’이다. 또 선생이 <최고의 꿈>을 풀었으니, 곧 ‘전능하신 성자가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100% 믿고 사랑하며 사니,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는 예수님을 쓰고 내게 나타나신 것이다.

30. 선생은 수천 번의 꿈을 꾸었다. 그 꿈은 <개인>에게 해당되고, <섭리사>에 해당되고, <민족과 세계>에 해당되는 꿈이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

31. <꿈>을 예사로 보면 안 된다. <꿈>은 계시이기 때문이다.

32. 성자는 <혼체>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혼의 세계>인 ‘꿈’으로 계시하시니, 꼭 기도해라. 그리고 낮에도 육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실히 생각하고 확실히 행해라. 그러면 <혼>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혼의 세계>를 뚜렷하게 보게 된다. 이에 성자도 ‘꿈’을 통해 확실히 보여 주시며 계시하신다.

33. <꿈>에서 본 것을 <생시>에서 찾으려면, ‘꿈에 불과한 떡’이 아니라 ‘현실의 떡’이 되어 실체를 찾게 된다.

34. <꿈>에 ‘혼’으로 만났는데, 그 혼의 육을 찾아 전도하기도 한다.

35. 사람뿐 아니라 <꿈>에 ‘혼’으로 어떤 것을 보면, 실제로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찾아 얻기도 한다.

36. 신령해야 <꿈>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

37. 자기 혼이 ‘능력’이 있어야 꿈에 영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성자께 계시를 받고 좋은 것을 얻는다.

38. 성자는 <꿈>으로만 계시하지 않으신다. <생시>에도 ‘생각’나게 하며 계시해 주시고, ‘직감·예감·영감’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또한 ‘감동’으로도 계시해 주신다.

39. 꿈, 생각나는 것, 직감·예감·영감은 ‘성자의 계시’이니, 모두 예사로 여기지 말아라.

40. 영계에 가도 계시를 잘 못 받는다. 평소에는 기도하면 성자가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실 때는 ‘하지 마.’ 하시거나, ‘100% 확인하고 해라.’ 하며 <감동>을 주신다.

4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 직감·예감·영감, 감동>으로 계시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며 계시해 주시고, <육>이 보고 들을 때 깨닫게 하며 계시해 주신다. 모두 예사로 보지 말고, 생활 가운데 ‘성자의 계시’를 깨달아라. 그러면 자기 혼과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도 깨닫게 되고, 자기가 할 일도 깨닫게 되고, 전도할 생명도 보이고, 관리하는 생명들의 상태도 보여 합당하게 관리하게 되고, 얻을 것을 얻고, 찾을 것을 찾고, 희망을 얻게 된다.

<2014년 6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꿈>은 ‘현실의 것’을 보여 주기도 하고 ‘미래의 것’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육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꾸기도 한다. 이때는 ‘혼과 영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다.

2. ‘새벽에 잠을 깨기 직전의 맨 마지막 꿈’은 특히 ‘육신과 연관된 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벽꿈>만 ‘참꿈’이라고 하고, <그 전에 꾸는 꿈>은 ‘개꿈’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꿈도 ‘혼이 활동한 것’으로서 혼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며, 혼계의 상황이며, 교훈적인 것들이 많다.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알아야 될 것들이 많다.

3. <꿈>은 ‘자기’가 꾸고 ‘자기’가 풀어야 된다.

4. 자기가 꿈을 꾸면 제일 기억을 잘한다. 또한 현실과 매치해서 꿈을 꾸니 자기의 현실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 고로 <꿈>은 ‘자기’가 꾸고 ‘자기’가 풀어야 된다.

5. <깊은 꿈>, <계시의 꿈>은 ‘계시를 준 자’가 풀어 줘야 된다.

6. <꿈>은 그 상황에 따라 수십억만 가지다. 사람마다 다르게 꿈을 꾸는데, 지구 세상의 한 사람이 하나씩만 꾸더라도 70억 가지다. 그런데 한 사람당 수백 가지의 꿈을 꾸니, 수십억만 가지다.
7. <꿈>은 자기가 처한 대로 꾸다. 선생 혼자만 해도 수백 가지의 꿈을 꾸었다. 그러니 지구 세상의 70억 명이 꾸 꿈의 가짓수를 다 합하면, 3천억 가지가 넘는다.
8. ‘자기 생활과 자기 생각과 연관된 꿈이며 계시’다. ‘민족과 세계와 연관된 꿈과 계시’가 있다.
9. <꿈의 세계>는 ‘혼의 세계’이며 ‘영의 세계’다. 그런데 육이 볼 때 꿈은 실체가 없으니 허무하게만 본다. <꿈>은 육으로 보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혼으로 보는 혼의 세계다.
10. 어젯밤 꿈에 내 혼이 어느 한 곳에 갔다. 거기서 어떤 자가 ‘긴 동나무’를 팔고 있었다. 얼마냐고 물으니, 다섯 개에 5만 원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것이 있기에 그건 얼마냐고 물으니, 한 개에 5만 원이라고 했다. 그건 왜 그리 비싼가 보니, 하나가 다른 다섯 개를 합한 것만큼 컸다. 꿈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 혼체인데, 지상의 육신과 연관된 혼체들도 있었고, 아예 혼체인 자도 있었다.
11. <혼의 세계>에도 ‘도시’가 있고 ‘시골’이 있다. <혼의 세계>도 <육의 세계>와 같이 차원이 각종각색이다.
12. <혼>이 ‘자기 육이 행할 것’을 예시하여 미리 보여 주기도 한다. 고로 꿈을 예사로 보지 말아라.
13. 어떤 사람은 <혼>이 꿈에 ‘자기 육신이 행할 것’을 미리 예시해 줬는데도 행하지 않아서 죽었다. 꿈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라.
14. <꿈>이 안 좋으면 ‘육의 상황’도 안 좋고, <꿈>이 좋으면 ‘육의 상황’도 좋다.
15. 꿈으로 교훈하기도 한다.
16. 사람들은 “꿈은 허무하다. 꿈이 뭐 그리 중하냐.” 하기도 한다. <꿈>도 ‘자기 실력 나름’이다. 꿈을 꾸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보화를 캐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모르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한다.
17. 꿈을 풀고 행하기다.
18. 혼계에서 ‘자기 혼’이 육계를 예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기도 하고, ‘성령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기도 하고, ‘성자’가 꿈으로 계시를 주기도 한다.
19. 좋은 꿈을 꾸고 그대로 하면, 그같이 된다.
20. 어떤 꿈은 1년 전체에 해당되는 꿈이다. 고로 그 꿈대로 행하면, 1년 내내 그 꿈대로 된다.
21. <꿈>은 ‘비유’로 보인다. ‘네가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며 보인다.
22. <꿈>은 ‘실제 혼의 세계’와 ‘비유로 꾸민 것이’이 섞여서 보인다.
23. 세상에서도 ‘실제로 있는 것’과 ‘만든 것’을 보이면서 가르친다. 이와 같이 <꿈>에서도 ‘실제로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꾸며서 만든 것’이 보이기도 한다.
24. 꿈에서 사람도 ‘실제 그 사람의 혼을 보일 때’가 있고, ‘그 사람을 꾸며서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여 보일 때’가 있

고, ‘그 욕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면서 보일 때’가 있다.

25. <꿈>에서도 <생시>에서도 ‘비유’를 못 풀면, 못 푼다.

26. <꿈>은 ‘비유’로 보이는데, 근거 있게 보인다.

27. 사탄을 상징하여 악한 자를 보여 주기도 한다.

28. <말>도 필요에 따라 하듯, <꿈의 배경>도 필요에 따라 달리 보인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이란, ‘다 할 수 있다.’ 함이다.

30. 자기 나라 말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말이 전지전능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계와 영계의 일을 다 알고 행하신다. 고로 다 할 수 있으니, 전지전능하시다.

<2014년 6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꿈>은 ‘현실’에 있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것도 보여 준다. 고로 ‘현실’에 있었던 일을 풀지 못하면, ‘꿈 계시’도 풀지 못한다.

2. 현실과 상관없이 혼체가 혼의 세계를 다니면서 보고 듣고 생활하는 것을 꿈으로 꾸기도 한다. 자기 마음·정신·생각에 의해 혼체가 혼의 세계를 다니면서 그 급의 혼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3. <혼의 세계>에도 차원이 있다.

4. 평소에 <육의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라야 <혼의 세계>에서 그 사람의 혼체를 알아본다.

5. <육의 세계>에서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며 알쏭달쏭한 사람들을 <혼의 세계>에서 ‘혼’으로 보게 된다.

6. <혼의 세계>에서도 처음 보는 자들이 많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혼들이 많다. 그러나 <혼의 세계>에서는 금방 사귀게 된다.

7. <육의 세계>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이성’으로 사귀면, 서로 금방 사귀고 가까워진다.

8. <혼의 세계>는 ‘제2의 육의 세계’다. 고로 거기서도 ‘이성’으로 사귀면 서로 금방 사귈다.

9. <혼의 세계>에도 ‘이성의 세계’가 있다. 고로 처음 본 자라도 ‘사랑’으로 가까이 대하면, 상대도 ‘사랑’으로 가까이 대한다.

10. <혼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예민하여 서로의 마음을 바로 알고 금방 통한다. 그러다 마음이 맞으면, 즉시 사랑을 이행한다.

11. <혼의 세계>에서는 말을 안 해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그것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어 상대의 마음을 따고 들어가 혼체끼리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대가 점점 육계에서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마치 오래전에 만난 자같이 기억나기도 한다.

12. <혼의 세계>에서도 <육의 세계>같이 전도하고 가르친다. 그러면 생시에 실제 그 사람이 전도되기도 한다.

13. <혼의 세계>에서 만났던 자인데, 그 후에 교회에 나왔다. 꿈의 실현이었다.

14. <혼체>와 <육체>를 잘 구분해야 된다. <혼체>는 아름다워도 그 <육체>는 보통이다. <혼체>는 마음·정신·생각과 일체 됐기 때문에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상태’에 따라 혼체가 반영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늘 기본 그대로 있다. 다만 늙으면 확 변한다. <혼체>와 <영체>는 ‘마음·정신·생각’과 ‘행위’에 따라 자꾸 변화되기에 <육체>와 다르다.

15. <혼체>는 ‘그때 육의 마음과 행실’대로 형체가 형성되어 나타난다.

16. <육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육의 세계>에서 육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혼의 세계>에서는 혼으로 만나서 뜻을 이루기도 한다. <혼의 세계>는 하나의 다른 세계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17. 혼체끼리 서로 알고 지내면, 혼의 세계에서 그 혼체와 자주 만나서 같이 생활한다. 혼체도 하나의 육체와 같은 혼계의 사람이다.

18. <혼>이 행하는 것은 <육>이 잘 모른다.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알게 된다.

19. 꿈속에서 <혼>을 보기도 하고 <영>을 보기도 한다.

20. 한번은 내 꿈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사람이 나타났기에 인사했다. 그 혼체는 내가 자기를 확실히 모르는 것 같으니까 자기 육신의 이름을 대면서 “저 누구예요.” 했다. 그제야 그 육신을 본 것이 기억나서 그 육신과 비교해 보니, 약간 닮은 모습이었다. <영>은 아니었다. <혼>이었다. 그 혼을 보니, 육과 10분의 2 정도는 닮은 것 같았다. 그러니 알쏭달쏭했다. 지금 어디 있냐고 하니 어디에서 묵회한다고 했다. 그 후 생시에 확인해 보니 맞았다.

21. 어떤 것은 <꿈>에서는 가상적이지만, <생시>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22. 성자는 <혼의 세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비유로 보여 주시는데, 이는 성자의 신부이니 쉽게 깨달으라고 보여 주시는 것이다.

23. ‘사랑’으로 비유해 보여 주면, 신부이니 쉽게 깨닫기 때문이다.

24. 애인끼리는 ‘사랑의 비유’로 말하면 쉽게 깨닫는다.

25.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사짓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쉽게 깨닫는다. 이와 같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행하며 사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면 쉽게 깨닫는다.

26. 전도할 때도 쉽게 대화하려면, 먼저 상대를 알아야 된다. 상대를 알고, 그에 따라 말해 주면 잘 따라온다.

<2014년 6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눈>을 돌려라. 그래야 <마음>이 돌려지고, <행실>이 돌려진다.

2. 보고 듣는 대로 마음이 가지고, 마음이 간 대로 육도 행해진다. 육이 행한 대로 영이 변화된다.

3. 운전하는 대로 차가 가지듯, 생각하는 대로 육이 가진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본인이 자체 시동이 안 걸리면, 그 사랑을 못 느낀다.

5.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옆에 계셔도 본인이 사랑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보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쳐다보시니 본인이 눈을 뜨면 보인다.
7.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눈을 떠서 사랑해야 삼위의 사랑도 알게 되고, 삼위가 도와주시는 것도 알게 되고, 삼위를 더욱 깨닫게 되고, 말씀도 더욱 깨닫게 된다.
8.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주인이고 주체다. 이는 ‘인간 책임이다.’ 함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네 집이 찾아오셨다 하자. 찾아와서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네가 잠을 자면 모른다. 이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무리 사랑해 주셔도 본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잠을 자면, 그 사랑을 몰라서 못 받는다.
10. 본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잠을 자고 있으면, 행여 그 사랑과 도움을 받아도 자기가 수고해서 받는 줄로만 알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고 도와주는 것으로만 안다.
11.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아가 행하여 얻는 것이다.
12. 가령 <지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라고 하자. 만일 지구에서 ‘물’이 필요하다면 물을 찾아 샘을 파서 얻고, ‘나무’가 필요하다면 산에 가서 수고하여 나무를 얻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열매 여는 나무를 찾아 얻어야 된다. 지구 안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수고하여 얻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성 삼위 안에서 자기가 찾아가 얻으면, 삼위는 창조한 것들 중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신 만물은 ‘보이는 하나님의 몸’이요, ‘보이는 성령님의 몸’이요, ‘보이는 성자의 몸’이다.
14. <작품>은 ‘작가의 생각과 수고’를 보여 주며, 말없이 깨닫게 한다.
15. <만물>은 그것을 만든 ‘창조주의 생각과 수고’를 보여 주며, 말없이 깨닫게 한다.
16.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신 만물, 곧 식물과 동물과 인간 등 각종 존재의 가짓수는 수천만 종이다. 고로 하나님은 ‘다양한 만물’을 보여 주면서 ‘만물의 이치’를 통해 즉시즉시 합당하게 깨우쳐 주신다.
18. <만물>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큰 실존물의 책’이다.
19. 영계에서도 역시 <만물>을 보여 주며 그 실상을 말해 주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깨우쳐 주신다.
20. 생시에서도 <만물>을 보여 주며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고, 느끼게 하면서 계시해 주신다.
21. 죄가 없어도 사용하는 것이 약하면 무너져서 참사를 당한다. 정치, 경제, 종교는 모두 ‘현재 사용하는 존재물들’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 그런 참사를 당하지 않게 된다.
22. ‘사용하던 것’이 무너지면 다치고, 해를 당하고, 죽기도 한다.
23. 이와 같이 ‘신앙’이 약해서 무너지면 다치고, 해를 당하고, 신앙이 죽기도 한다.

24. ‘성자를 향한 사랑’이 약해서 무너지면 해를 당하고, 사랑이 죽어 영영 살아나지 못하기도 한다.
25. ‘진리, 자기 책임분담, 조건 세우는 것, 새벽기도’가 약해서 무너지면 해를 당하기도 하고, 신앙이 죽기도 한다.
26. 자기 죄로 인해 욕과 혼과 영이 약해서 신앙이 무너지면 해를 당하고, 신앙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27. 어떤 일을 놓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하다가 그 일이 무너지면 해를 당하고, 실패의 참사를 당하게 된다.
28. 실로암 망대는 돌로 쌓았기에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못 했다. 그러나 망대를 쌓은 사람만 안다. 망대가 완전하지 못하니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고 알았다. 고로 그 망대를 쌓은 사람은 그곳에 잘 안 올라갔다.
29. 배의 구조를 변경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배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고로 그 사람은 그 배를 잘 안 탄다.
30. 잘 만들면 처음에는 튼튼하다. 처음처럼 튼튼하게 항상 관리하고 보수해라.
31. 신앙도 처음에는 튼튼하다. 처음 신앙처럼 튼튼하게 늘 관리하고 보수해라. 그렇지 않으면 약해져서 무너진다.
32. 월명동도 <야심작>을 중시하여 범사에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보수해라. 누구든지 사용만 하지 말고, 지켜보아라.

<2014년 6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으면, 그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
2. 가까이 가야 말씀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
3.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먼저 부르고 찾으며 가까이 가야 된다. 인간은 ‘육신’인 고로 보이는 세계에만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집중되어서 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오셔도 인간은 모른다.
4. 땅을 개발하지 않으면, 잡초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뒤덮여 무섭게 변해 버린다. 이와 같이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성자를 믿지 않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지 않아 자기를 ‘선(善)’으로 만들고 개발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와 행위로 변하여 욕도 혼도 영도 무섭게 변해 버린다.
5. 땅속에 묻힌 철을 캐내어 여러 과정을 거쳐 변화시키면, 목적인 대로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욕도 혼도 영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대로 변화되면, 상상도 못 하게 변화된다.
6. 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계속 커 가면, 해마다 상상도 못 하게 변화되면서 크다. 100년을 넘어서 1000년까지 상상도 못 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크다. 처음의 씨와는 비교가 안 된다.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사망으로 가지 않아 죽지 않고 살면, 욕도 혼도 영도 처음에 비해 상상도 못 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변화된다.
7. ‘본래 상태로 그냥 놔둔 것’과 ‘만들고 변화시킨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차이가 있다. 만들면, 본래의 형태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8. <창조의 능력>이다. <만드는 능력>이다. 창조하고 만들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9. 사람도 만들면, 신과 같이 된다.
10. ‘육’으로 행하여 ‘영’이 신이 되게 하여라.

11. 세상의 보이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여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료를 가지고, 인간이 수백억 가지로 재창조하여 만드는 것이다.
12. 하나님은 '제1의 창조자'이며, 인간은 '제2의 창조자'다.
13. <만드는 표적>이다.
14. 네가 표적을 보려거든, 만들어라.
15. 네가 기적을 일으키려거든, 만들어라.
16. 보기 싫으면,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라.
17. 너는 꿈이 없느냐. 그러면 만들어라.
18. 만든 자가 주인이다.
19. 없으면, 찾고 만들기다.
20. 온종일 찾았는데 없는 것도 네 <뇌 차원>과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찾으면 있다.
21. 찾아도 없으면, 만들어라.
2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든 것은 작으나 크나 모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23. 없는 것은 찾고, 만들고, 사용하기다.
24. <글>도 찾고 만들고, <물건>도 찾고 만들고, <사람>도 찾고 만들기다.
25. 만사의 모든 것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구상'이다. 우리는 그의 손과 발과 몸이 되어 '그 구상대로 만들기'다.
27. <시간>도 어떻게 쓰면서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8. 만든 대로 쓰여진다.
29. 귀히 만들어 놓으면 귀히 쓰여지고, 천히 만들어 놓으면 천히 쓰여진다.
30. 자연스럽게 만들기다.
31. 순리적으로 만들기다.
32. 구조가 맞게 만들기다.
33. 튼튼하게 만들기다.
34.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기다.

35. 근본 형태와 모양을 알고 설명을 잘해 주면서 창조주와 함께 기뻐하며 만들기다.

<2014년 6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현재보다 배로 더 해라. 성자의 특별 계시다.

2. 신약성경을 보면, 주인은 세 명의 종들에게 재능대로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겼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부지런히 배로 행하여 달란트를 배로 남겼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대로 땅에 감추었다.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는데도 게을러서 열심히 안 했고, 또한 주인의 마음을 오해해서 열심히 안 한 것이다. 결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다. 배로 하여 배로 남긴 자들만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했다.

3. 신약 때도 그러했다. 지금은 성약 신부시대이니, 더욱 열심을 다해 재능대로 배로 더 해라.

4. 누구든지 '배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니 배로 더 해라.

5.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니, 배로 더 해라.

6. 배로 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7. 배로 하면 '자기의 꿈'도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자기를 향한 성자의 계획과 뜻'도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

8. 배로 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9. 배로 하면 대길하고 황재한다.

10. 가령 운동장 길이가 55m인데, 배로 수고해서 55m를 더 넓히면 110m가 된다. 배로 안 하면 <일반 운동장>으로 쓰고, 배로 넓히면 <국제 규격의 축구장>으로 쓰게 된다.

11. 배로 하면, 상상도 못 하는 세계형으로 변화된다.

12. 자기가 사는 집이 배로 더 커진다면, 엄청나다. 이와 같이 '기도, 심정, 말씀, 성령의 역사, 영적 능력, 전도, 관리, 강의, 설명을 잘하기, 성자 사랑'을 배로 더 잘하면, 육도 혼도 영도 배로 더 변화되고, 영이 '휴거의 영'으로 완성되어 <휴거 차원의 세계>로 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13. '새벽기도'도 배로 더 하면, 엄청난 표적이 일어난다.

14.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을 당겨서 배로 일찍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강도>를 배로 강하게 해야 한다.

15. 기도는 <시간>보다 <강도>다. 얼마나 성자에게 집중하여 대화하며 깊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16. <월명동>이 지금보다 배로 더 커지면, 상상도 못 하는 세계가 된다.

17. 월명동의 <조경 돌과 나무>가 배로 더 커지면, 엄청나게 된다.

18. <신앙>도 <인생 삶>도 배로 수고하면서 해 보아라. 그러면 더 엄청나져서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될 것이다.

19. 배로 커지면 엄청나다. 엄마 배도 배로 커져, 그 안에서 '한 인생, 태아'가 성장하게 된다.

20. 어렸을 때부터 배로 더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
21. ‘안 될 것’도 배로 해 버리면 된다. 배로 생각을 깊이 하고, 배로 연구하고, 배로 더 잘하려고 하면서 하면 된다.
22. 현재보다 배로 하면, 모두 휴거될 수 있다.
23. 사랑도 배로 더 해라. 사랑을 배로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육 사랑’이 아니라 ‘뇌 사랑’이다.
24. <전도>도 배로 하면 엄청나다.
25. 배로 하면, <세계형>이 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6. 배로 더 해라.
27. 배로 더 하라는 말씀은 섭리인뿐 아니라 종교, 학문, 정치, 경제인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다. 모두 배로 더 뛰고 노력해야 된다.
28. 배로 더 안전하게 하고, 배로 더 성실하게 하고, 배로 더 온전하게 하고, 배로 더 화평하고, 배로 더 충성하고, 배로 더 열심히 하고, 배로 더 진실하고, 배로 더 부지런하고, 마음과 양심과 행실을 배로 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29. 지금은 각 분야마다 배로 더 해야 될 때다.
30. 배로 하면, 어려움도 다 해결된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사고가 많다고만 하지 말고, 배로 하면 해결된다.
31. 건강도 마찬가지다. ‘웬 병이 이렇게 많냐?’ 하지 말고, 지혜롭게 배로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
32. ‘배로 더 해야 할 것’이 있고, ‘반으로 줄여야 할 것’이 있다.
33. <운동>도 ‘현재보다 배로 해야 될 사람’이 있고, ‘현재보다 반을 줄여야 될 사람’이 있다.
34. <잠>, <혈기와 분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배로 더 하면 안 된다.
35. ‘배로 더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으로 줄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찾고 깨달아라.
36. <시간>도 배로 아껴 써야 된다. ‘뇌의 차원’을 높여서 ‘영적’으로 하면 시간을 배로 아끼면서 할 수 있다.
37. <공부>도, <기도>도, <일>도 ‘뇌의 차원’을 높여서 하면 배로 더 하게 된다.
38. <전도>, <강의>, <관리>, <삶의 각종 일들>도 기도해서 깨닫고 직행 길로 가면 배로 빨리할 수 있다.
39. 어떤 일을 하든지 뇌의 차원을 높이고, 기도하여 깨닫고 직행 길로 가고, 성자와 같이 하면 배로 빠리한다.
40. 기도할 때도 <마음·정신·생각>을 배로 일도(一到)해서 해야 졸리지 않고 잡념이 없어져 영계로 쑥 들어가게 된다.
41. 배로 하면, <휴거>에 있어서 불안에 떨며 자포자기하는 자들도 다 휴거된다.

42. 불안에 떨지만 말고, 안 된다고 하지만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배로 해라. 그러면 휴거된다.
43. 무지한 사람들은 욕이 천국으로 휴거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욕이 천국으로 휴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두 배’ 아니라 ‘열 배’나 열심히 해도 한 명도 휴거되지 못한다.
44. <휴거>는 ‘욕’이 시대 말씀을 듣고 ‘의의 행실’을 하여, ‘욕의 행위’를 통해 ‘영’을 변화시켜 ‘영’으로 된다. 고로 누구든지 배로 더 하면 휴거된다. 그러니 어렵다고 하며 포기하지 말아라.
45. 왜 휴거되기 어려운지 아느냐. 자기를 만들지 않고 행하기 때문이다.
46. 휴거되려 하기 전에 먼저 너를 만들어라. 네 뇌 체질, 생각 체질, 몸 체질을 바꾸면서 먼저 너를 만들어라. 네 모습과 성격을 고치면서 먼저 너를 만들어라. 먼저 욕을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라. 그러면 쉽게 ‘휴거의 영’으로 만들 수 있다.
47. 휴거되기보다 어려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다. 곧 ‘이성의 죄, 음란물 보는 것, 인터넷의 불의한 내용을 보는 것, 썩는 문화를 접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은 자기 양심에 찔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 휴거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몇배씩 더 잘한다.
48.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의 역사>를 이 시대에 행하시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돕는데, 어렵다고 어느 정도만 하다가 안 하는 자들이 많다.
49. ‘잡시간’은 반으로 줄이고, ‘걱정과 불안함’도 반으로 줄여라. ‘배로 더 할 것’을 찾아 배로 행해 보아라. 즉시 배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상상도 못 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50. <회사 봉급>도 현재보다 배로 더 받는다면, 정말 엄청날 것이다. 차원을 높여 <네가 할 일>을 현재보다 배로 더 해 보아라. 상상도 못 하는 표적이 일어난다.
51. <욕>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하여 <자기 영>이 현재보다 배로 예뻐지고, 배로 멋있어지고, 배로 강해진다면 ‘신의 모습’이 된다.
52. 현재보다 배로 빠르게 한다면 ‘신’이 된다.
53. 자꾸 해 보면 배로 빠르게 할 수 있다. 운동장을 뛰는 것도 자꾸 해 보면 시간을 단축시킨다. 각종 기술도 자꾸 하다 보면 빨라진다. 그래서 ‘달인’이 되는 것이다.
54. 선생 먼저 배로 해 보고 성자에게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배로 하니,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이에 성자는 더욱 함께하셨다.
55. 말씀을 행하기 전에는 ‘과연 될까?’ 하고 의심한다. 해 보면 ‘되는구나!’ 하고 감탄한다. <행하는 자>는 표적을 일으킨다.
56. ‘배로 더 해라.’ 이 말씀은 <휴거되는 데 있어서도 보물>이고, <어떤 일을 하든지 보물>이다.
57. <운전>은 배로 빨리하지 말고, 배로 조심해서 해라.
58. <영감, 직감, 흔적 차원의 생각>은 배로 더해져야 상상도 못 하는 표적이 일어난다.
59.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함>은 지금보다 반으로 없애라. 그러면 썩 없어진다.

60.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반으로 줄이고, ‘성자가 원하시는 것’을 배로 해라. 그러면 잘된다. 정녕 성자가 말씀하신 대로 된다.

61. “현재보다 배로 잘해라.” - 이 말씀은 <성자의 특별 계시>다. 행하기만 하면 ‘최고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62. (성자) 현재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과 나 성자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알고 선포한 생명의 말씀이다.

63. (성자) 올해는 <성자 사랑의 해>다. 올해 나 성자가 너희를 극적으로 도우며 함께할 때, 자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휴거>를 완성시키자. 항상 ‘봄’이 아니고, 항상 ‘여름’도 아니고, 항상 ‘가을’도 아니다. <때>는 1초도 더 있지 않고 지나간다.

64. 부지런히 배로 더 행하여 6월, 7월까지 <휴거 200선>에 오르고, 8월, 9월까지 휴거 <300선>에 올라라. 10월부터는 늦어서 안 된다. 어서 배로 더 해야 된다.

65. 현재보다 배로 더 하는 자는 상상도 못 하게 ‘휴거의 차원’을 높여 <휴거 300선>을 완성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얻게 된다.

<2014년 6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와줄 때 해라. 그때가 기회다.

2. (성자) 이 말씀은 너에게 전하는 나 성자의 생명의 특별 계시다.

3. (성자)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와줄 때 해라. - 이 말씀을 외우고 살아라. 금시계, 금목걸이같이 항상 차고 다녀라.

4. (성자) 많이 도와주든지, 적게 도와주든지 내가 도와줄 때가 기회이니, 그때 해라. 내가 떠나면 못 돕는다.

5. (성자) 내가 잠을 깨워 주었을 때, 그때 일어나라. 잠을 깨워 주면 됐지, 일으켜 주기까지 해야 되겠느냐. 실 가닥만큼이라도 <핵>을 돕고, 나는 떠난다.

6. (성자) <만사의 모든 일>도 내가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와줄 때 해라.

7.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울 때 해라.’ 이 말씀은 “조금이라도 도와줄 때 해라.”, “조금 도와도 성자가 도우니, 하면 된다.”, “줄 때 받아라.”라는 말이다.

8. 성자가 도와줄 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9. 어느 때는 ‘복’을 주면서 도우시고, 어느 때는 ‘육과 영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 도우신다.

10. 어느 때는 ‘손해’ 가게 하면서 도우신다. 가는 길을 막으면서 도우신다. 그래야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이다.

11. 때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돕기도 하신다. <각종 고통>으로 안 되게 하면서 돕기도 하신다. 그때 각종으로 연단되어 변화되고 휴거되게 하신다. 그때 강하게 만들어서 사탄도 물리치게 하신다.

12. 모든 만물에 비를 내려 주고 햇빛을 주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우신다.

13. 악인은 안 도우신다.

14. 성자가 도울 때는 본인이 느낀다. 그러면 그때 “나를 돕고 계시지요?” 하고 성자에게 말해라. 그러면 더욱 돕는 것이 느껴진다.
15. 신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돕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드리면 더욱 역사하신다. 그때 사연이 생기고, 정이 들고, 더욱 사랑하게 된다.
16. <과거>에 도왔던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 <현재>에 더욱 도와주신다.
17. (성자) <휴거>도 내가 도울 때 해라. 때 지나면 떠나니, 못 도와준다. 그때는 혼자 해야 된다.
18. 성자는 올해 떠나신다. 떠나시면, 실 가닥만큼도 도울 수가 없다.
19. 휴거도, 만사의 모든 일도 성자가 떠나면, 그때는 혼자 해야 된다.
20. 성자도, 분체도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와주니, ‘제때’, ‘해야 될 때’, ‘도와줄 때’, 그때 자기도 책임을 하며 해야 된다. 그때 힘들다고 못 하면, 후에는 혼자서 해야 하니 더 힘들어서 못 한다.
21. 성자는 특히 ‘우리 힘으로 못 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그것이 ‘실 가닥같이 작은 것’ 같지만, 자기가 못 하는 ‘그 일의 핵’을 도와주니 ‘아주 큰 것’이다.
22. 어떤 사람은 도와줘도 안 한다. 성자와 분체가 돕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그 가치를 모르니 안 한다.
23. 때가 되면 성자도 할 일을 해야 하고, 분체도 할 일을 해야 하기에 떠나간다. 계속 조건만 세워 줄 수도 없고, 계속 도와만 줄 수도 없고,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수도 없다. 때에 따라 역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24. <휴거>를 위해서도 계속 조건만 세워 주고, 도와만 주고,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휴거된 영’들은 열매를 맺었으니, 때에 따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 성자는 떠나신다.
25. 때가 되어 과일나무에 열매들이 열렸는데, 어떤 나무는 열매를 못 열었다고 해서 그 나무에만 계속 퇴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은 나무들의 열매들을 추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곧 겨울이 와서 ‘열린 열매들’마저 잃게 된다.
26. 모두 휴거되라고 도와주고 성자가 ‘휴거된 영’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준비하러 떠나시면, 그때는 또 판국이 뒤바뀐다.
27. 새벽에 누가 깨워 줘도 못 일어나는데, 혼자서 일어나겠느냐. 성자와 분체가 도와줘도 휴거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혼자서 다 행하면서 휴거될 수 있겠느냐. 휴거의 때가 지났는데, 혼자서 휴거될 수 있겠느냐. 도울 때, 어서 해라.
28. 성자와 분체가 도와줄 때 못 하고 때가 지나가면, 그제야 후회하고, 어려움에 빠져 오랫동안 곤고해하고, 그로 인해 포기하고 더욱 죄를 짓기도 한다.
29. 어떤 사람은 도울 때 안 해서 화를 받기도 하고, 섭리사를 나가서 사망길을 가게 되어 다시는 못 돌아오기도 한다.
30. 어떤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기도 한다.
31. 행하면 각종 복을 받을 것인데, 행하지 않아서 신앙도 육신도 힘들게 살고, 병도 오고, 희망이 사라지기도 한다.
32. 성자가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울 때, 열 일 제쳐 놓고 기뻐하여 번뜩번뜩 행해라.

33.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때와 시기’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못 하고 말게 된다.

34. <자기 때>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며, ‘황금기’다. 그때 해야 성자도 돕고, 분체도 돕고, 천사도 돕는다.

35. 지금 이때는 모두가 ‘휴거되는 데 있어 최고의 황금기’다.

36. <휴거>를 위해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성자 사랑의 해>를 선포하시고, 극적으로 역사하고 도우시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때다.

37. ‘때’가 지나면, ‘도움’이 사라진다. 그러면, 자기 혼자 깊은 골짜기에 있게 된다. 혼자 있으니, 사탄과 악한 자들이 가까이 와서 덮친다. 이를 깨닫고, 성자가 도울 때 어서 해라.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38. 성자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합당하게 도우신다. 어느 때는 포기할 때 도우시고, 어느 때는 혈기를 낼 때 못 하게 도우시고, 어느 때는 기분 나빠 할 때 성자가 알고 와서 위로하며 도우시고, 어느 때는 실망할 때 와서 도우시고, 어느 때는 사탄의 주관을 받고 괴로워서 죽으려 할 때 도우시고, 어느 때는 낙심하고 마음을 접으려 할 때 도우시고, 어느 때는 서운함과 소외감으로 뒤덮였을 때 와서 도우시고, 어느 때는 외롭고 쓸쓸할 때 와서 도우시고, 어느 때는 죄를 지을 때 “하지 마.” 하고 막으면서 도우시고, 어느 때는 음란물을 보고 생각이 성적으로 흘러갈 때 도우시고, 어느 때는 이성으로 흐를 때 도우시고, 어느 때는 세상 썩는 문화와 인터넷으로 흘러갈 때 도우신다.

39. 성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잘할 수 있게 반드시 실 가닥만큼이라도 깨우쳐 주고 깨닫게 하면서 도우신다.

40. 성자가 도와도 우리는 ‘조금’ 느낀다. 이는 생활 가운데 성자께 집중하지 않고, 정신과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감도가 약한 것이 원인이다.

41.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서나 성자가 여러 가지로 돕는다는 것을 알아라. 특히 죄에 빠지려 할 때, 불의한 생각과 행실에 빠지려 할 때 하지 못하게 돕는다는 것을 알고, 그 도움을 받고 이겨라.

42. 성자가 돕는다고 느끼면, 즉시 깨닫고 성자가 돕는 대로 해라.

43. 성자가 도울 때 돌이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하면,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가서 기어이 이성 죄, 각종 중죄를 짓게 되고, 화를 받고, 손해가 가게 된다. 또한 <휴거>에 큰 차질이 생기고, <사명>은 ‘하늘의 벼슬’인데, 사명이 틀어지게 된다. 그리함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되도록 나를 안 도와줬지?” 하며, 교역자를 원망하고, 관리자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성자를 원망하고, 선생을 원망하고, 모두 다 밉게 보면서 원망하고 서운함으로 주관을 돌리고, 각종 불의한 것을 행하며 스트레스를 푼다.

44. 시험에 들어 혼자 있을 때에는 누구와도 안 통하고 소식을 끊으니, 사람을 보내어 도울 수가 없다. 그러니 이때 성자는 특별히 누구를 보내서 돕지 않고, 개인을 깨우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꿈에도 보여 주며 깨닫게 해 주신다.

45. 내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성자와 분체가 너를 구하기 위해 네 옆에 와서 말씀하며 도우시니, ‘마음’으로 깨닫고 ‘감동’으로 깨달아 듣고 이겨라. 그리고 “즉시 실천하세요!” 고백하고, 번득 순종해라. 그러면 그때 더욱 성자와 통하게 되고, 성자와 정이 붙고, 사연이 생긴다. 또한 성자는 더욱 도우신다.

46. 성자가 도울 때 안 하면, 그 <생각과 행위>가 사망에 있게 된다.

47. 자기 책임을 못 해 사탄의 꾀를 받고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있다. 역시 그들도 성자가 도우셨다. 감동으로, 생각으로, 만물로, 사람을 통해서 도우셨다. 그러나 자기가 뿌리치고 제 갈 길로 간 것이다.

48. 한 번 신앙을 상실하면, <자기 때>를 상실하니 못 돌아온다. 그대로 못 돌아오고 영원히 끝난 사람도 있고, 수백 명 중의 한 명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다시 돌아오지만, <자기 때>가 지나가서 와 보면 이미 딴 세상이 되어 있다.

49. 성자가 도울 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복’을 주신다.

50. 성자가 도울 때 행하는 자를 성자는 더욱 도와서 이상세계가 되게 해 주고, 정이 들어 전보다 더 도와주어 휴거도 빨리 되게 해 준다.

5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울 때 안 하니 그동안 개인, 단체, 교파, 민족, 세계에 사고가 나고, 소돔 땅이 되기도 하고,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되어 심판을 받기도 했다.

52. 성자가 도울 때가 기회이니, 그때 꼭 행해라.

53.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울 때 하라는 말씀은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네게 하는 말씀이다. 지금 이때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2014년 6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54. 사람마다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고, ‘마음과 행위’가 다르다. 성자는 ‘때와 환경,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합당하게 돕는다. 고로 <수백만 가지 방법>으로 도우신다. 자기 힘으로 못 할 때 그냥 놔두면 안 되니, 성자는 꼭 도우신다.

55. 성자는 도울 때 <말씀>을 통해 도우신다. 전체에게도 개인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면서 도우신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 도우신다. <말씀>으로 ‘육신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마음과 생각’을 쿡쿡 찌르며, ‘육’에게 <말씀의 자극>을 주면서 도우신다.

56. 위기 때나, 급히 도와야 할 때는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감동되게 하여 귀로 들리게 하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하며 도우신다.

57. 영감, 직감, 느낌, 감동으로 도우신다.

58.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면서 도우신다.

59. 만물을 보이며 계시하면서 도우신다. 눈에 보이는 실제 존재물을 보여 주며 도우신다.

60. 분체 통해 편지로 도우신다.

61. 사람을 보내어 도우신다.

62. 꿈에 합당하게 보여 계시하며 도우신다.

63. 흔히 자기가 무엇을 깨달으면, 자기 <양심>이 스스로 깨달은 줄로만 안다. 그같이 못 박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 육의 뇌와 마음, 정신, 생각>을 깨우쳐 주며 도우시고, <양심, 느낌, 감동>으로 도우시고, <창조한 만물>을 통해 할 말을 깨우치며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돕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행해라.

64. <영감, 직감, 느낌>이 오면, 성자가 도우신 것이다.

65. <감동>을 받으면, 성자가 도우신 것이다.
66. 생각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성자가 도우신 것이다.
67. <만물>이 보이며 깨달아지면, 성자가 도우신 것이다.
68. <사람>을 통해 도움이 오면, 성자가 도우신 것이다.
69. <꿈>을 통해 깨달았으면, 성자가 도우신 것이다.
70. 성자는 실 가닥만큼이라도 반드시 도우신다. 그런데 그 느낌, 감동, 깨달음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성자는 할 수 없이 등을 돌리시고, 어느 때는 책망과 심판을 하시며 행한 대로 받게 하신다. 그리고 깨달고 돌이키면, 다시 돕기도 하신다.
71. <영감, 직감, 느낌, 감동>은 ‘성자의 구상’이다. 그 구상대로 행해라. 그 구상은 ‘생각’으로 전달된다.
72. 어떤 참사나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감, 직감, 느낌, 감동, 깨달음>을 ‘마음’에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그 <영감, 직감, 느낌, 감동, 깨달음>을 예사로 생각하고 미루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다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73. <영감, 직감, 느낌, 감동, 깨달음>을 강하게 받으려면, ‘마음과 생각’을 <성자>께 집중하여 행해라.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면 잘 보이듯, <성자>께 집중하면 성자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74. <영감, 직감, 느낌, 감동>이 크고 강하게 올 때만 믿고 행하지 말고, 실 가닥만큼이라도 오면 그때 즉시 행해라. 그때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우실 때다.
75. 생활 가운데 늘 성자와 분체를 생각하고 의식해야 성자와 분체가 도울 때 알고, 성자와 분체가 옆에 와도 안다.
76. 지금은 <휴거 때>라서 모든 것을 <휴거>에 기준을 맞춰서 보기에, 다른 때보다 기준이 높으니 보다 힘든 것이다. 고로 성자가 돕지 않으면 안 되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핵’을 도우신다. 이를 알고 포기하지 말고, 성자가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울 때 어서 해라.
77. 성자가 함께 계실 때, 성자가 도우실 때, <뇌>에 시동이 걸리고, <생각>에 시동이 걸리고, <몸>에 시동이 걸려 쉽게 하게 된다. 그때 생활 속에서 그 힘을 받고 더 행하게 되고, 마음에 불이 타서 성자를 사랑하게 되고, 체질과 습관도 고치게 된다. 그리함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휴거의 영’으로 더욱 빨리 변화된다.
78.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울 때 꼭 해야 된다. 그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좌우되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좌우되고, <자기 꿈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좌우된다.
79. 자기가 과거에 기도해 놓았기에 때가 되어 성자도 분체도 천사도 돕는 것인데, 그때 안 하면 ‘지난날 기도해 놓은 것’과 ‘희망’이 허사가 된다.
80. 성자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해라. 그러면 성자가 돕는 것을 즉시 안다. <휴거>를 위해, <너의 온전함>을 위해 성자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해라. 만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여라.
81. 성자는 떠나시기 전에 ‘핵’을 도우신다. 이 시대의 핵은 <휴거>다. 지금은 <휴거> 때문에 성자는 밤낮으로 도우신다. 이때가 <자기 때>이며, <황금기>다.
82. 성자와 분체가 도울 때, 어서 몸부림쳐 <자기 모순>을 고치고, <자기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고치고, <뇌 체질과

몸 체질>을 바꾸어 자기를 만들고, ‘만든 육신’을 가지고 어서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라.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83. 성자가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와줄 때가 기회이니, 그때 해야 된다.

84. 적게라도 도와줄 때 해야지, 그때 못 하면 혼자 해야 되기에 하기 힘들고 어렵다.

85. 새벽에도 혼자 일어나기 힘드니, 성자는 깨워 주고 도와주신다.

86. 성자가 강하게 잠을 깨워 주셔도 ‘몸에 살짝 스치는 바람’같이 느껴지면서 실 가닥만큼만 자극이 온다.

87. 잠을 자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을 떴어도 ‘몸’과 ‘마음·정신·생각’은 97% 수면 상태다. 고로 잘 안 일어나진다.

88. ‘눈’을 떴어도 ‘뇌’가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으면, 비몽사몽 상태에서 다시 잠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는 ‘몸’도 ‘생각’도 실 가닥만큼만 잠이 깨어 있다. 이때 ‘실 가닥 같은 생각’을 잡고 일어나야 된다.

89. 잠에서 깨어 앉아 있어도 ‘몸과 생각’은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또 졸리다. <육신>은 누구나 그러하다. 발이 저릴 때 발을 마사지하면 풀리듯, ‘실 가닥같이 생각이 깨어났을 때’ 머리를 지압해 주면서 자극을 주면, 뇌의 수면 상태가 풀린다. 그러면 일어나기 쉽다.

90. 힘들고 졸려도 자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여 <체질>이 되게 해라. <체질>이 되면, 새벽에 잠에서 깬 때 ‘몸과 생각’이 30% 이상 강하게 되어 수면 상태라도 쉽게 일어나진다.

91. 평소 때도 성자가 성령님과 함께 도와주며 강하게 생각나고 느껴지게 해 주셔도 인간은 실 가닥만큼만 느낀다.

92.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과 뇌’가 그때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 마치 수면 상태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로 성자가 강하게 도우며 느끼게 해 주셔도 자기는 실 가닥만큼만 느끼고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 성자와 분체를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자극을 줘라. 그러면 ‘몸과 뇌와 생각’은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던 상태에서 마치 잠을 깨듯 깨게 된다. 그때는 성자가 주시는 생각과 느낌과 감동과 도움이 실 가닥같이 느껴지지 않고 강하고 확실하게 느껴진다.

93. 사람이 ‘다리’가 저릴 때는 자극을 줘도 조금만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아예 느껴지지 않는다.

94. ‘마음과 생각’도 그러하다.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그때 자기가 하는 일에 쏠려 있다. 이때는 성자가 강하게 자극을 주셔도 실 가닥같이 느껴지고, 혹은 아예 못 느끼기도 한다.

95. 고로 자기가 먼저 성자를 찾고 생각을 집중하여 강하게 해야, 성자가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성자의 말이 마음으로 강하게 들려오고, 성자가 각종으로 전하시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96. 기도할 때, 더욱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된다.

97. 기도해도 <자기가 구할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서 성자가 말씀하셔도 못 느낀다.

98. 기도할 때는 ‘마음과 생각’을 <성자>께 집중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래야 성자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오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99. <기도>와 <대화>는 다르다. <기도>는 자기가 성자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고, <대화>는 성자를 앞에 두고 성자에게 집중하여 말하는 것이다.

100. 사람끼리도 같이 대화해야 서로 마음이 통하여 상대가 하는 말이 잘 들린다. 기도할 때도 혼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기가 구할 것만 말하지 말고, <성자>께 집중하여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느끼고, 깨달아라.

101. 똑같은 생각을 해도 ‘낮’에 생각한 것과 ‘새벽’에 생각한 것은 그 차원이 땅과 하늘 차이다. 새벽에는 뇌가 매우 총명한 상태라서 차원 높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된다.

102. 제시간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기도하며 성자와 대화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아라.

103. 새벽에 제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또 자면, 사몽과 흥몽과 잡몽을 꾸게 되고, 혼이 사탄 주관권을 다니게 되고, 꿈에 혼이 필요 없는 장소를 다니고 필요 없는 배경을 보게 된다. 제시간에 일찍 일어나면, 그런 꿈을 꿀 필요가 없게 된다.

104. <산길>을 가다가 길이 끝나면 되돌아와야 된다. 길이 끝났는데 거기서 더 가면, 필요 없이 가시녕쿨과 잡초 밭으로 더 가게 된다. <꿈길>도 그러하다. 일어날 시간이 됐는데 더 자면, 혼이 필요 없는 배경을 보고 겪으면서 사몽과 흥몽과 잡몽만 더 꾸게 된다.

105. 새벽에 성자가 실 가닥만큼이라도 도울 때, 그때 일어나서 성자와 대화하며 기도해라.

<2014년 6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개인 불붙이기 조건 기도 1일째

1.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시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는 시대는 <성약시대> 때부터 시작된다. 구약역사는 4000년이다. 신약역사는 2000년이다. 고로 신약역사는 <2000년 왕국 시대>다.

2. <1000년 왕국 시대>는 신약역사가 끝난 후에 성자가 다시 와서 ‘새 역사, 최고의 부활과 휴거의 역사’를 펴실 때부터다. 그 기간이 1000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1000년 역사 때>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완전히 나오는 <완성급 역사>다.

3. 이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완전히 일체 되어 <신부>로서 완성하니, 사탄이 쪼개져서 사탄의 주관과 다스림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함으로 개인도 역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게 되고, 성자와 그 육인 분체가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된다.

4. <1000년 역사>에서 ‘휴거의 차원급’으로 올라야 완전한 부활이 되어, 육도 영도 완전히 사망권을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며 살게 된다.

5. 저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을 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개인이 잘해야 된다.

6.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고, ‘그가 보낸 자’를 앎으로 이루어진다.

7. 구시대는 <삼위일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보낸 자>에 대해 모른다. 고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 고로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8. (성자) 지금은 전체가 모였을 때 전체 속에서만 잘하기보다 개인이 혼자 있어도 잘하게 해야 되는 때다.

9. 전체가 모였을 때는 서로가 힘이 되어 다 잘한다. 뜨거운 역사다. 그런데 개인이 혼자 있을 때가 문제다. 개인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불’이 점점 식어 가고, ‘말씀’과도 멀어진다.

10. 개인이 잘해야 혼자 있어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희망 충만, 충성 충만’ 이다.

11. 선생도 개인이 잘하는 것을 배우고 행했기에 혼자서도 잘한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혼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며 사탄과 싸워 이겼다. 사탄을 이기지 못했다면 죽었든지,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을 것이다.

12. 선생은 사탄과 싸워 이기며 혼자서 불을 일으키고, 혼자서 말씀 받고, 혼자서 행해 왔다. 오히려 혼자 하여 얻을 것을 풍족하게 얻고, 온 섭리세계에 나눠 주고 있다.

13. 10대, 20대에 산속에서 기도하며 지낼 때도 옆에 사람 한 명도 없이 혼자서 기도하며 견디고, 혼자서 성경 읽으며 행하고, 혼자서 전도하러 다니고, 혼자서 찬양하고, 먹는 것과 입는 것도 혼자서 해결하고, 나 들으라고 혼자서 설교하면서 육적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

14. 외롭고 쓸쓸할 때도 혼자서 해결했다. 쥐와 새들을 불러서 놀았다. 그러니,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점점 더 유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의 근본>은 '찬양, 말씀, 기도, 주와 교통'이었다.

15. 긴긴 세월 동안 혼자서 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는 영의 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육적인 쓸쓸함과 육적으로 오는 고통을 영적으로 혼자서 해결했다.

16. 혼자 있으니, 사람들을 못 봤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1:1로 느끼고 생각해 보면서, 그때 말씀도 배우면서,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17. 모두 혼자 있을 때에는 성자와 분체와 1:1로 교통하면서, 신앙적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그러면 청중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실속 있고, 성자와도 분체와도 더 잘 통한다.

<2014년 7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개인 불붙이기 조건 기도 2일째

18. 사람은 '아기'와 '어린이'를 빼놓고, 혼자 있는 개인 시간이 70% 이상이다. 고로 혼자 있을 때 약한가, 강한가에 따라서 인생 운명이 좌우된다.

19. 신앙적으로도 청중 속에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공적 집회 모두 합쳐도 생활 가운데서는 거의 혼자 살아간다. 고로 혼자 있을 때 약한가, 강한가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된다.

20. 성자와 분체의 걱정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다. 각 사람은 '오직 하나뿐인 귀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늘 손으로 잡고 다니면 마음이 놓이지만, 같이 있다가도 사명을 하러 가야 되고, 회사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잠자리 가야 된다. 안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지면 걱정이다. <해결 방법>은 '가르쳐서 개인이 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걱정이 안 된다.

21.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과 같이 있더라도 결국 개인이 해야 존재한다. 예를 들어 청중이 있어도 기도하면, 각자 기도해야 된다.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청중이 있어도 은혜를 못 받는다.

22. 청중이 모이면 분위기에 휩쓸려 은혜를 받게 되고, 청중의 영향으로 뜨거운 불이 오기도 한다. 이는 마치 겨울에 차가운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있으니, 보다 따뜻한 격이다. 그러다 혼자 있으면, 방이 차가우니 춥다. 이같이 '청중 속의 은혜'를 중심하면, 그때뿐이다.

23. 방에 혼자 있어도 땀이 나게 하는 방법은 혼자 있어도 운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럿이 있을 때보다 더 땀이 나고 덥다. 고로 개인이 잘하라는 것이다.

24. 누가 붙잡아 주고, 집회에 가고, 어떤 모임에 가야만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혼자서는 매우 약하다. 10명, 1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버릇하면, 혼자 있으면 고양이만 봐도 무섭고, 강아지만 쫓아와도 가슴이 뛰는 것이다.

25. 다윗은 10대 때 한 나라의 장군 골리앗과 혼자서 싸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과 더욱 함께하셨다.
26. 성자가 함께하시니, 개인이 유능하게 만들어야 된다.
27. 지도자는 생명들을 자기 손에 꼭 쥐고 다스리지 말아라. 더 약해질 뿐이다. 혼자서 잘하게 가르쳐 주어라. 그러려면 지도자 먼저 혼자서 잘하게 만들어라.
28. 조은 목사도 개인이 잘하는 법을 배웠다. 모두 따라오다가 낙오됐으나 끝까지 성자와 선생을 따라오며 배웠다. 고로 혼자 있어도 늘 성자와 분체를 잊지 않고 오직 주 뜻대로 행하며 성자와 분체의 몸이 되어 뛰고 달리며 섭리사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다.
29. 개인이 혼자 하더라도 ‘육’은 혼자이지만, ‘영’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늘 함께한다.
30. 사람은 청중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 혼자 두면 걱정이 된다.
31. 혼자 있을 때 약해서 넘어지고, 혼자 있을 때 사람에게 당하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의 꾀를 받아 죄를 짓고, 혼자 있을 때 이성 죄도 짓게 되고, 혼자 있을 때 음란물을 보고, 혼자 있을 때 TV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빠지고, 혼자 있을 때 각종 세상 것에 치우친다.
32. 혼자서도 잘하게 만들어야 혼자 있어도 죄를 안 짓고, 환경을 다스리고, 자기와 사람들과 환경을 주관한다.
33.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청중 속에 같이 있어도 결국 개인이 해야 존재한다. 고로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놔야 ‘개인 점수’가 많이 나와서 ‘변화’가 크게 일어나 ‘휴거’된다.
34. 운전도 결국 혼자 하지, 둘이 안 한다. 운전을 가르치는 사람이 처음에만 운전대를 잡아 준다. 결국 혼자 연습하고, 혼자 운전하게 한다. 혼자서 운전을 잘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을 준다.
35. ‘자기라는 차’는 <자기>가 운전하면서 몰고 다녀야 된다. 고로 각자 ‘개인이 잘하는 법’을 배워서 개인이 성령의 불도 일으키고, 개인이 말씀을 읽고 외치면서 말씀의 불길을 일으켜라. 혼자 있어도 전도, 관리, 찬양을 잘하고, 개인이 잘못된 이론, 잘못된 종교와 교파, 악인들을 다 알고 다스려야 된다.
36. 개인이 잘하는 사람들이 뭉치면, 웅장한 대역사가 일어난다.
37.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말씀과 성령의 불’을 일으킨다. 또한 성령집회 때 ‘말씀과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른다.
38. 개인이 정상적으로 잘해야 육도 혼도 영도 빨리 변화되어 차원 높여 휴거 300선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
39. 개인이 잘하려면 배워야 된다. 고로 성자는 때에 따라 <말씀>을 주며 배우게 하신다. 그 <말씀>이 ‘개인을 잘하게 만드는 자료’다.
40. 섭리의 특공대가 되어라. 특공대는 개인이 잘하는 자다.
41. 개인이 잘하는 자는 ‘노력과 실천,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하며, 자기를 수련하고 다스린 자다.
42. 혼자 있을 때도 잘하면, 항상 자신감이 차고 넘친다.

43. 지금은 모두 ‘개인이 잘하게 해야 될 때’다. 개인이 잘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때다.

44. 개인이 잘하면, 환난이 일어나 혼자 있어도 성자와 분체와 1:1로 통하면서 평소에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 마음이 놓인다.

45. <하나님의 때>는 한 시간도 머무르지 않고, 이미 때가 되어 실행 중이다. 분체를 만나면, 그때 하려고 하느냐. 지금 같이 뛰고 있는 때다. 하나님의 때는 <휴거 때>가 되어 급절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이 <자기 때>, <하나님의 때>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

46. 모이면 하려 하고, 분체를 육으로 만나면 하려 하면서, 개인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는 자는 <자기 때>를 다 놓치고 안타깝게 살고 있는 자다.

47. <개인 환난 때>나 <섭리사 환난 때>도 ‘개인이 잘하는 자들’은 다 피하고 이겼다.

48. 개인이 잘하면, <악평 글>을 보고서도 생명 사냥꾼들이 어떠한지 알고, 오히려 간증하여 불을 붙인다.

49. 개인이 잘해야 영웅이다. 자기를 ‘영웅’으로 만들어라.

<2014년 7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개인 불붙이기 조건 기도 3일째

50. 선생은 처음에 ‘돌 쌓는 법’을 전혀 몰랐다. 처음에는 서툴지만, 하나하나 행하면서 배워 나갔다. 최선을 다했지만, 돌이 ‘다섯 번’ 무너졌다. 돌이 무너지는 것을 거울로 삼아 더 배웠다. 그러면서 개인이 잘하게 만들고야 말았다. 결국 남의 힘을 빌려서 안 하고, 선생이 하나님과 성자의 구상대로 <야심작>을 쌓고야 말았다. ‘신부’가 했으니, 사연이 넘쳐났다.

51. 개인이 유능하게 만들면, 더 멋지고 보람 있는 <야심작 역사>가 일어난다.

52. <성약역사>, <휴거 역사>는 과거에 누구도 해 본 일이 없다. 고로 섭리사에서 새롭게 배우고, 개인이 잘하게 해야 된다.

53. 선생도 그 전에 누가 <성약역사>를 뛰어 본 일이 없었기에 오직 성자에게 배우고 개인이 잘하게 하면서, 섭리역사를 성자와 같이 이끌어 왔다.

54. 조은 목사도 그 전에 누가 <성약급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했다. 그러나 본인이 성자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배우면서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었다. 결국 성자와 성령께서 그 몸을 쓰시며 성령의 불을 일으키셨다.

55. <성약 섭리역사>를 펴 나가는데, ‘기성’이 대신 해 주겠느냐. ‘안 믿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해 주겠느냐.

56. 누가 해 줘야만 해 버릇하면 ‘자기 기술과 특기’, ‘하나님과 성자가 주신 개성의 달란트’를 쓰지 않고, 계속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고 뇌의 사고와 생각이 굳어 버린다. 그러다 행여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하면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

57. 개인이 잘하게 배우지 않고 만들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같이 땅에 묻어 두는 자가 된다(마 25:14-30). 결국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늘 남만 의지하게 된다. 그러다 ‘육’도 ‘신앙’도 결국 해를 당하게 된다.

58. 지금은 이 시대에 할 것을 다 가르쳐 줬으니, 개인이 시대 말씀을 배우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 때’다.

59. 왕은 혼자서도 잘 생각하고, 혼자서도 잘해야 된다. 혼자서 잘해야 '왕의 임무'를 맡긴다.
60. 혼자서도 잘하는 만큼 '자유'를 얻게 된다.
61. 교회에서 <전체>를 보면, 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개인 한 명, 한 명을 시켜 보면, '개인이 잘하는 자'는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니 휴거되는 자가 적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주 쓰러지고, 자꾸 힘을 잃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다. 고로 부흥이 안 된다.
62. <집회>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때만 은혜 받고, 힘 받고 변화되려 하면서, 그것에만 의존하여 크다. '집회 중독'이다. 이런 사람은 다 컸어도 엄마 품을 못 벗어나고 같이 있어야만 하는 자와 같다.
63. 개인이 잘하면 어디를 가도 은혜 충만하고, 혼자 있어도 은혜 충만하다.
64. 선생은 그리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주고 성령집회를 해 주며 불을 붙여 주는데도 신앙이 잘 식고, 빨리 변화되지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자에게 기도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개인이 잘하게 해 주어라." 하는 <성자의 특별 계시>였다.
65. <전체>가 있을 때보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잘해야 섭리사가 부흥된다.
66.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성령의 불을 일으켜 줘도 결국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생활을 잘 못 하고,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 개인이 힘든 것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이 악평을 이기지 못하여 1년에 700~800명이 유실된다.
67. 각 나라 모두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나가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68.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관리자도 지친다.
69. 섭리사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개인이 잘하여 개인 유지가 되어 남아졌다.
70.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야 혼자 있어도 '환난'을 이기고 잘한다.
71. 사도 바울은 혼자 있어도 개인이 그리도 잘했다. 처세를 잘하고, 현실에 처한 상황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고로 성자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의 몸'을 쓰고 행하셨다.
72. '개인이 잘하는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국가 대표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남한테 밝히지 않고 살게 된다.
73. 개인이 잘해야 성자에게 쓰임 받는다.
74. 지금 이때는 개인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잘해야 될 때다.
75. 누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에게 걱정을 안 끼치고 개인 영웅이 되어 스스로 불을 붙이며, 더 나아가 전체에 불을 붙일 자인가? 그런 사람을 찾는다.
76. 자립 신앙, 지도자가 되는 신앙이다.
77. 성자와 분체와 더욱 가까워지고 일체 되는 신앙이다.
78. 개인이 잘하는 자는 어디 있으나 불덩어리다.

79. 개인이 잘하게 만들면, 뜨거운 역사를 일으킨다. 성자와 성령님이 더욱 함께하신다.

80. ‘성자 사랑’도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기가 ‘뇌와 생각의 차원’을 높여 개인이 유능하게 해야 된다.

<2014년 7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기쁨, 자기 흥분이다.

2. <자기>가 자기를 흥분시키는 것이지, <남>이 자기를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다.

3. 늘 <남>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킨다면, 인생은 거의 혼자서 사는데 그때는 기쁨을 못 느낀다.

4.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남>도 기쁘게 하지 못한다.

5.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고 흥분하지 못하면, 지구 세상의 70억 명 어느 누구라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흥분시키지 못한다.

6.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면, 아무도 없어도, 어디를 가도 자기가 행하여 ‘기쁨의 천국’으로 만든다.

7. 사랑의 상대자, 기쁨의 대상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상대가 기쁘게 해 줘도 자기가 기뻐지 않으면, 기쁨을 느낄 수 없다.

8. 저마다 <자기 뇌>에 ‘기쁨과 흥분’을 느끼는 신경 세포가 있다. 고로 자기 자체적으로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9.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가 기쁘게 해 주고 흥분시켜 주는 줄 알고 상대의 사랑만 받으려 하고, 상대가 자기를 기쁘게 해 주기만을 바란다.

10. 사람의 <뇌>에 ‘기쁨과 흥분’을 일으키는 세포가 없으면, 지구 세상 70억 명이 평생 기쁘게 해 주고 흥분시켜 줘도 단 한 번도 기뻐하지 못하고 흥분하지 못한다.

11. <자기 뇌의 마음·정신·생각>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는 ‘자료’다.

12. 그 자료가 없으면 청중의 사랑을 받아도 기뻐하지 못하고, 혼자 있어도 기뻐하지 못한다.

13. 자기에게 <뇌>라는 자료가 있으니, 혼자 있다고 외롭다 쓸쓸하다 하지 말고,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영원한 기쁨과 흥분’ 속에서 살아라.

14. 자기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각자 자기가 잘해야 빨리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300선으로 솟아오른다.

15. <사랑>도 ‘자기’가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대’가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 줄 알고, ‘이성의 상대’만 찾아다닌다.

16. 인생 삶에는 수백 가지의 ‘기쁨과 흥분’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이성 사랑>으로만 ‘기쁨과 흥분’을 해결하려 한다. 그러니 거기에 빠져 만사의 다른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17. ‘기쁨과 흥분과 희망’은 <자기 뇌>에 다 가지고 있다. 고로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놓으면, 집회나 모임이 없어도 혼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의 상대가 되어 어디서나 수시로 이상세계를

일으킨다.

18. 혼자 있을 때 못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리고, 항상 누가 옆에 있으면서 잡아 주기만을 기다린다.

19.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누가 옆에 있으면서 잡아 주면, 그때는 그 힘을 받아서 쓴다. 그러다 혼자 있으면, 또 허리 끈을 졸라매고 굶주리는 신세가 된다.

20. 혼자서도 잘하게 만들면, 혼자 있을 때도 '희망'을 만들고 '기쁨'을 창조하고 행하여, 혼과 영을 계속 변화시켜 휴 거 300선으로 오르고, 이어서 400선 이상으로 계속 올라간다.

21. <휴거>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100선 소생급 휴거 2차 200선 장성급 휴거 3차 300선 완성급 휴거다. 300 선 완성급 휴거를 이뤄야 '영'이 완성되고 <천국 황금성>에 간다. 휴거는 이렇게 크게 나눠 3단계다. 그러나 <휴거 300선>부터 더욱 차원 높게 변화되면, 천국의 집을 더욱 멋있게 만들게 되고, 천국의 집을 더욱 넓히게 되고, 휴거된 자기 영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 더욱 권세 있게 된다. 이것을 휴거 400선, 500선, 600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22. 혼자서도 잘하게 만들면, 혼자서도 '조경'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성자와 함께 '이상세계'를 만든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1:1로 대하면서 혼자서 어디를 가도 잘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육도 영도 잘 변화되고, 성자가 귀히 쓰신다.

24. 혼자 있을 때는 못하니 혼자 있으면 넘어지고, 길을 잃으면 길을 못 찾고 길 잃은 양이 되는 것이다.

25. 혼자서도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은 '개성의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누린다.

26.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는 '군중'이 함께 받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결국 자기 앞에 있는 적과 혼자서 싸우게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못하면 총을 가지고 있고 총에 이상이 없는데도 적과 싸우지 못하고, 안타깝게 적에게 잡혀간다.

27.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주면, 혼자서도 '사탄'을 물리치고, '악평자'를 물리치고, '그때마다 자기가 할 일'도 잘하여 자립한다.

28.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주면, 혼자서도 '전도'하고 '강의'하고 '관리'하여 생명을 <성자의 신부>로 만들어 준다. 그러다 군중을 모아 <교회>까지 만들게 된다.

29. 자기 혼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자기를 만들어라.

<2014년 7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30. 차를 운전하려면, 먼저 '운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배우되, 완전하게 배워야 된다. 그러면 혼자서도 잘 다닌다.

31.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 하는 법'을 완전하게 배워야 된다.

32.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어디 있어도 통할 수 있다. 고로 어디 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함께 행하면 된다.

33. 말씀을 잘 배우고, 생활 가운데 어디 있으나 '말씀의 검'을 휘두르며 살아라.

34. 누가 옆에서 잡아 주고 누가 해 주는 것에 길들어, 누가 함께 해 줘야만 불이 붙는 사람은 혼자 물에 빠졌을 때 소리만 지르고 허우적대는 사람과 똑같다.
35. ‘수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헤엄치며 놀다 온다. 그러나 ‘수영하는 법’을 안 배운 사람은 물만 보면 무서워하고, 행여 물에 빠지면 물만 먹으면서 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36.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주어 혼자서도 잘하게 해 주어라. 그러면 세상 바다에 나가도 빠져 죽지 않는다.
37. 첫째,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기’다. 둘째,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려면, ‘자세히 배우기’다. 셋째, 배우되 ‘완전하게 배우기’다.
38. 배워야 혼자서도 잘한다.
39. 배워서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면 어디를 가도, 혼자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
40. 배웠으면, 계속 연습해 보며 실천해 봐야 된다. 그래야 혼자서도 잘한다. ‘배우기’다. 그리고 ‘연습하며 실천하기’다.
41. 배우고 실천하다 보면 혼자서도 잘하게 되어, <생각>도 뒤바뀌고, <상황>도 뒤바뀌고, <운명>도 뒤바뀐다.
42. 배우지 않고 자꾸 실천하지 않아서 혼자서 할 줄 모르면, 늘 피하게 되고, 늘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울면서 슬퍼하고, 무서워한다. 자신이 없으니 공포에 시달리기까지 한다.
43. 혼자서도 잘하도록 자세히 배워라. ‘자료’는 <말씀>이다. 배우면서 계속 실천해 봐라. ‘실천 도구’는 <네 몸>이다.
44. 사람은 혼자서 다 물리칠 수 있다. 죄를 안 지으면 자기와 다투지 않게 된다. 죄를 안 지으면 아예 ‘사탄의 코스’로 가지 않으니, 사탄을 물리칠 필요도 없다.
45. 행여 죄를 지었어도 즉시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는 자는 즉시 ‘죄의 길’에서 방향을 돌려 ‘다른 길’로 가게 된다.
46.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여럿이 있어도 잘한다.
47. 사랑하는 자를 혼자서 그의 상대가 되어 사랑해야지, 둘이 그의 상대가 되어 사랑할 수 없다.
48. ‘어린아이’나 ‘뇌가 크다가 만 자’나 혼자서 못 한다고 한다.
49. 혼자서 못 하면 혼난다.
50. ‘혼자 잘하는 어린아이’가 ‘혼자 못 하는 어른’보다 훨씬 낫다.
51. 힘들어도 혼자서 잘하면 마음이 편하고, 성자와 더욱 일체 된다.
52. 혼자 있어도 잘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눈을 더 크게 떠서 보신다.
53. 혼자 해야 기쁨, 흥분, 희열이 더욱 불타고, 마음과 생각이 더욱 불탄다.
54. 혼자서 잘해야 <육>도 <영>도 안 죽고 살아남는다.
55.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중심하게 된다. <자기 생각>은 한 겹 줄이니, 한 겹 줄은 약해서 패한다. 혼자 있을 때는

더욱 생각을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다.

56. 혼자 있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아라. 그러면 <성자>가 ‘머리’가 되고, <자기>는 ‘몸’이 되어 행하게 된다.

57. 혼자 있을 때 성자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러니 불러라. 손으로 더듬어 만져 보아라. 그러면 닿는다.

58. 혼자 하면 다 하지만, 여럿이 있으면 남이 할 것이라 생각하고 안 한다. 여럿이 있으면 고기를 잡아도, 보물을 주워도 나눠서 가져야 된다. 그러니 적다.

59. 자동차 경주를 하는데, 한 차에 다섯 명이 타면 차가 무거워서 잘 달리지 못한다. 혼자 타야 경주한다.

60. 혼자 있을 때 잘해야 <선수>다.

61. 혼자 있을 때 잘해야 <영웅>이다.

62. 혼자 있을 때 잘해야 <킹>이다.

63. 혼자 있을 때 잘해야 <스타>다.

64.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혼자서도 잘하신다.

65. 혼자서도 잘하는 자가 <선생>이며, <지도자>이며, <영도자>다.

66. 씨름할 때, 경주할 때, 겨룰 때 결국 혼자 해야 된다.

67.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 혼자서 싸웠다. 하나님이 더 함께하셨다.

68. 야곱은 형 에서가 괴롭히니, 혼자 밧단 아람으로 갔다. 만일 혼자 못 하겠다고 했으면, 에서가 같이 있으면서 계속 괴롭혔을 것이다. 그러니 혼자 해라. 그러면 자기를 괴롭히는 자가 없어진다. 힘들어도 혼자 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때 성자와 더욱 일체 된다.

69. ‘자기를 만드는 재미’가 충만하고, ‘자기를 만드는 희락’이 충만하고, ‘자기를 만드는 기쁨’이 충만하고, ‘자기를 만드는 희망’이 충만해야 부지런히 행하여 자기를 만든다.

70. 힘들지만 <성>을 쌓아 놓으면, ‘성’이 무너지 때까지 쓴다.

71. 힘들고 고생돼도 나무로 한 번 <집>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나무’로 돌아오지 않고 일생 동안 편하게 사용한다.

72. 힘들지만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100배, 1000배, 10000배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육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편히 살고, ‘영은 영원히’ 천국에서 편히 살게 된다.

73. 자기를 안 만들고 살면 100배, 1000배 갚은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산다. 고로 힘들어도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74. 지난날 수고하여 만든 것들을 보아라. 만들어 놓으니, 영원하다. 지상 세계에서 천국같이 되었다. 만들어 놓으니, 과거에 고통스럽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다시는 그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된다.

75. 만들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고통과 화’가 되지만, 만든 후에는 모든 것이 ‘기쁨과 축복’이 된다.

76. 만들어 놓으면 ‘천국’이 되고, ‘기쁨과 희락’이 된다.

77. 만들어야 ‘화’도 ‘복’이 되고, ‘고통’도 ‘기쁨’이 된다.

78. <자기 인생>도, <자기 혼과 영>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지상에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복’이 되어 그것을 누린다.

79. 자기를 만들 때는 만드는 것으로 인해 힘들고 고되다. 그러나 만든 후에는 만든 만큼 쓰면서 사니, 편하고 기쁘다. 만듦으로 인해서 <육>은 ‘일생 동안’ 편하고, <영>은 ‘영원히’ 편하다.

80.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순간은 편하지만, 결국 평생 힘들고 고되게 살게 된다.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은 ‘일생 동안’, <영>은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

81. 노아는 ‘배’를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도 ‘배’를 타고 살았다. ‘배’를 안 만든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모두 멸망받았다.

82. ‘자기를 만든 자’는 행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더라도 그로 인해 깨닫고 희망차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안 만든 자’는 두려움과 고통과 걱정과 불안함에 떨게 된다.

83. <호수>를 만들어 놓으면 비가 와도 ‘복’이 된다. 빗물을 호수에 가두어 농사짓는 데 쓰고, 먹는 데 쓰면서, 그것을 가지고 누린다. <자기 육과 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모든 것’이 복이 된다.

<2014년 7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84. 자기를 만들어라.

85. <자기를 만드는 자료>는 충분하다. ‘시대 말씀’도 자료이고, ‘자기 뇌’도 자료이고, 행할 ‘손과 발과 각 지체’도 자료다.

86. <자기>는 ‘자기 것’이니,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적극적으로 만들게 된다. 자기에게 해당돼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

87. 자기를 만들되, <시대 말씀>으로 만들어라. <구시대 말씀>으로 만들면 ‘구시대 사람’이 되어 ‘구시대’에 쓰여지고, ‘구시대 삶’을 살아야 편하다. <새 시대 말씀>으로 만들어야 ‘새 시대 사람’이 되어 ‘새 시대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받을 것’을 받고 살게 된다.

88. ‘어느 시대 말씀’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형체’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쓰여지는 것’도 달라진다.

89. 자기를 만들어서 쓰면, 만들기 전보다 만 배, 십만 배, 백만 배 더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게 된다.

90. 자기를 만들어서 쓰면, 무엇을 해도 자신이 있다.

91. 육도 혼도 영도 만든 후에 써야 된다. 육신은 늙으면 끝나니, 하루라도 빨리 만들고 써야 된다.

92. 자기를 만들고 쓰면 ‘하루’만에도 차원을 높여서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안 만들고 쓰면 ‘10년’을 해도 그 차원으로 밖에 못 한다.

93. <휴거>도 마찬가지다. 먼저는 자기를 만들고,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94. 시간이 문제 될 것 없다. 어차피 <자기>를 만들어야, <자기 영>도 ‘휴거의 영’으로 만든다.
95. 무조건 개발만 하려 하니, 어렵고 힘들다. 먼저 연장을 사 오고, 개발 기계를 사 와야 된다. 그리고 자기 체력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개발하면 쉽다.
96. 고기만 잡으려 하니, 어렵다. 먼저는 ‘배’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배워라. 그다음에 고기를 잡으려 바다에 나가야 된다.
97. 휴거되려고만 하니, 휴거되기 어려운 것이다. 먼저는 <자기 모순과 성격>을 고쳐라. 그리고 <자기 마음과 생각>, <뇌 체질, 몸 체질>을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그래야 ‘성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자기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게 된다.
98. <자기 모순>을 고치지도 않고, <자기 성격>을 고치지도 않고, <자기 마음, 생각, 행실, 뇌 체질, 몸 체질>을 성자의 뜻대로 고치지도 않고 행하려 하니, 성자의 뜻대로 잘 행해지지도 않고, 마음과 몸도 잘 움직여지지 않고, 변화도 더디고, 행할수록 자꾸 힘든 것이다.
99.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이상세계>도 자기와 맞지 않아서 싫다.
100. <천국>도 자기 영을 ‘천국의 형체’로 변화시켜야 가게 된다.
101. 자기 영을 ‘천국의 형체’로 변화시켜야 체질이 맞아서 <천국>에 가도 기뻐하며 살게 된다.
102. <자기 생각>과 <행위>를 만드는 대로 ‘그 환경’을 좋아하며 살게 된다.
103. <자기 마음과 생각>, <행위>, <뇌 체질>, <몸 체질>을 ‘성자 뜻대로 만들기’다. 그래야 ‘성자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자와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104. <자기 성격>, <자기 마음과 행실>, <뇌 체질과 몸 체질>을 먼저 고쳐야 그 ‘마음과 행실과 체질’로 행하기에 휴거되기 쉽다.
105. 어떤 사람은 <이상세계>에 와도 싫어서 미친다. 그러다 떠나간다. 이는 그 <생각, 행실, 뇌 체질, 몸 체질>을 이 상세계에 맞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이상세계와는 안 맞기 때문이다.
106. ‘자기를 만든 사람’은 <이상세계>에 오면 좋아서 미친다. 자기를 <마음, 생각, 행실, 뇌 체질, 몸 체질>을 이상세계와 맞게 만들어 놓았으니, 이상세계에 와서 좋아서 미쳐서 사는 것이다.
107. 만일 지옥 흑암에 사는 영들을 <천국>에 데려다 놓는다면, <마음, 생각, 행실, 뇌 체질, 몸 체질>이 안 맞아서 못 살 것이다.
108.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것’도 싫다 한다. <자기 마음과 생각, 뇌 체질, 몸 체질> 때문이다.
109. 이 좋은 <하나님의 섭리역사>도, 이 좋은 <시대 말씀>도, 이 좋은 <휴거>도 <자기 마음, 생각, 뇌 체질, 몸 체질>에 따라 좋아하며 따르기도 하고, 싫어하며 안 따르기도 한다.
110. 어떤 사람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시골’에다 별장 짓고 사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도시의 삶’을 좋아한다.

111. <자기 생각의 차원>, <자기 삶의 차원>, <자기 체질>에 따라 좋고 싫음이 좌우된다.

112. <자기 사고>, <자기 마음과 생각>, <자기 행실>, <자기 뇌 체질, 몸 체질>대로 인생 '현실'에서도 살아가고, 그에 따라 '앞날'까지 결정되어 살아가고,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

113. 자기 운명이 좋게 되기 원하거든 <마음, 생각, 행실, 뇌 체질, 몸 체질>을 변화시켜라. 이 마음, 저 생각, 이 체질, 저 체질,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오직 <성자의 생각>, <성자의 체질>이다! 그래야 성자와 같이 산다.

114. <자기 욕>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만든 차원대로 영의 세계에 가게 된다.

115. 세상의 모든 존재물들도 만들어서 완성돼야 쓰여지는 곳으로 가게 된다. 하찮은 볼펜 하나도 공장에서 완전히 만들어져 완성돼야 판매하여 쓸 수 있다.

116. 인생도 그러하다. <욕>을 가지고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여 <혼과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온전히 만들어야 <천국>에 간다.

117. 힘들지만 시대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그 말씀을 행하여 <자기 욕과 혼과 영>을 만들어 놓으면, <육신>은 살아 있는 동안 천국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118. '매일 만들기. 매일 행하기. 매일 말씀 듣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새롭게 되기. 매일 얻기.'다.

119. 주는 오늘도 턱을 고이시고, 섭리 세상과 지구 세상 내다보며 '혼자 잘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찾으신다.

<2014년 7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올해는 <성자 사랑의 해>다. 성자는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정한 때가 되어 떠나셔야 된다. 고로 성자가 같이 있을 때 사랑하고 충성하라고 확실히 말해 준다.

2. 말씀을 듣고도 안 하고, 알고도 안 한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3. '때'가 지나면 부모도, 형제도, 애인도, 구원자도 '다른 차원'에 있으니 쳐다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다. '때'가 지나면 도와도 소용이 없다.

4. <남은 기회의 때>에 목숨 걸고 하기를 명한다. 앞날을 확인해 보니, 지금 꼭 목숨 걸고 행해야 된다.

5. 올해는 <확인하고 행하는 해>다.

6. 확인하지 않고 가다가 순간 '죽는 길'로 가고, '고생 길, 고통의 길'로 간다.

7.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성자를 사랑하고 충성해라. 꼭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확인하고 행해라. 이 두 가지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명령'이다.

8. 확인하지 않고 행하면 화를 받고,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하고, 불구자도 되고, 사기도 당하고, 사탄에게 끌려가 어처구니없이 당하고, 이성의 꿈에 빠져 사랑을 뺏긴 아담과 하와같이 되어 고통을 받는 등 수백 가지 종류로 각종 화를 당한다.

9. 자기가 자기를 고생시킨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 '확인하고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헌신짝같이 버렸기 때문이다.

10. <확인의 말씀>을 듣고 ‘확인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며 꼭 지켜 행해라.
11. 사람은 지능이 낮을수록 더 이상 생각을 못 하고, 확인하지 않고 행한다.
12. <확인>은 ‘행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쳐 준다.
13. <확인>은 ‘첨단의 분별 법’이다. 전능자가 주신 법을 지켜 행해라.
14. <확인>은 ‘분별의 지혜’다.
15. <확인>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답안지’와 같다.
16. <확인>은 ‘자와 저울’과 같다. ‘자’로 재 보고 ‘저울’에 달아 보면 다 알듯이, 확인해 보면 속이는 자가 속일 수 없다.
17. <확인>은 곧 성자다.
18. 은밀한 것들도 <확인>으로 드러내어 파헤친다.
19. <확인>은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으니, 모두 드러낸다.
20. 하나님은 <확인>으로 ‘숨은 것’을 드러내신다.
21. 누구든지 성자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확인>이라는 두 글자를 뇌 속에서 잊고 사는 자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손해와 실수와 화’가 닥친다.
22. <확인>이란, ‘눈’과 같아서 ‘실체’를 보게 되고 알게 된다. 고로 확인하는 자는 ‘신’이 되어 행한다. 그러니 확인해라.
23. 성자는 지난날 각 사람의 죽음과 각종 사고에서 구하셨다. 이제 성자가 떠나니, 확인하고 행하라는 말씀을 생명시키고 지켜서 ‘생명’도 ‘모든 삶’도 보호해야 된다.
24. 눈과 귀와 손과 발 등 ‘육’으로도 확인하고, ‘마음’으로도 확인하고, ‘꿈’으로도 확인하고, ‘혼’으로도 확인하고, ‘만물 자연 계시’로도 확인하고, ‘영감’으로도 확인하고, ‘말씀’으로도 확인하고, ‘성자와 분체’에게 물으면서 확인하여라.
25. <확인>은 ‘성자의 능력의 지팡이’다. 고로 꼭 확인하고 행하는 자는 ‘성자의 능력의 지팡이’를 받은 자다.
26. <확인>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 주고, ‘천국’에 가게 인도해 주는 사역자다.
27. <확인>은 ‘전쟁터의 특수 수색대’와 같다.
28. <확인>은 ‘삶의 핵, 생명의 핵’이다. ‘핵’이 빠지면, ‘골 빠진 머리’와 같다.
29. 진실로 <확인>을 사랑해라.
30. <확인>은 생활 속의 ‘칼’과 같고 ‘불’과 같고 ‘물’과 같고 ‘먹는 음식’과 같으니, 항상 사용해라.
31. <확인>은 거짓인지, 참인지, 선인지, 악인지 밝히 보여 준다.

32. 시간이 걸려도 100% 확인하고 행한다면, 아무도 못 속인다.

33. <확인>은 ‘지능’을 높게 해 주고, ‘생각과 정신과 행실의 차원’을 드높여 준다.

34. <확인>은 ‘너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애인’이다.

35. <확인>은 ‘삶의 큰 보물’이다. <확인>으로 ‘집과 재산’을 보호하고, ‘목숨’도 건지고, ‘명예와 벼슬’도 얻고, ‘구원’도 받고, ‘휴거’도 된다. <확인>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깨달아라.

36. ‘확인하고 행해라.’ - 이 말씀은 성자가 우리 각자의 마음에 써 주신 선물이다.

<2014년 7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37. 네 앞에 ‘속이는 것들’과 ‘해하는 것들’이 몰려와 네게 들러붙는다. 오직 <확인>만이 그것들을 분별하고 쪼개 내어 ‘좋은 것’을 얻게 하고 ‘나쁜 것’은 내던지게 한다.

38. <확인>은 너를 꺾는 음녀나 음남에게서 벗어나게 해 주고, 영과 육을 음부와 지옥으로 가게 꺾는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해 준다. 고로 <확인>은 구원자요, 성자다.

39. <확인>은 ‘너를 지키는 수호천사’와 같다.

40. 확인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확인해라.

41. <확인>은 너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불안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고로 <확인>과 항상 동행하여라. <확인>이 너를 지켜 준다.

42. <확인>은 ‘도끼’ 같아서 쪼개 낸다. 고로 벗겨서 속을 보여 준다.

43. <확인>을 천대하고 <확인>에 무관심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화를 당하고 탄식하며, 길바닥에 나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된다.

44. ‘천국’도 ‘지옥’도 땅에서 확인하고 살아라.

45. ‘마귀’와 ‘악한 자’는 항상 자기 뜻을 이루어 해를 주려 하니, 꼭 미리 확인하여 그로부터 오는 해를 당하지 말아라.

46.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고, 향락을 누리기 전에 그리 행하면 ‘그 영’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확인해라.

47. ‘현재의 네 행위’가 ‘네 앞날의 운명’을 결정한다. 고로 ‘네 생각과 행위’를 확인하고 살아라.

48. ‘글 한 자’도 써 놓고 확인하고, ‘말 한 마디’도 확인하고 하고, ‘한 발자국’을 걸어도 확인하고 걸어라.

49. <확인>은 ‘생명의 핵무기’다.

50.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복지>에 가서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악평하고 원망한 자들은 ‘가나안 복지로 가는 자격’을 상실하고, <지옥 같은 광야 벌판>에서 고생하다가 끝났다. <가나안 복지>에 가서 확인하고 선포한 자들과 그 2세대들만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가서 살게 되었다.

51. 애굽 같은 구시대 기성인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불신하고

악평하고 떠난 자들의 육과 영은 <광야 모래사막 같은 세계>에서 살게 된다. 끝까지 따라와서 확인한 자들에게는 <천국 황금성의 문>이 열려 '육'이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고, '영'은 천국 황금성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 <확인>은 '확실하게 사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

52. 모두 <확인의 눈>을 떠라.

53. 확인하지 않고 행하면 '사슴'을 못 고르고 '여우'나 '늑대'나 '염소'를 골라 놓고, 좋아서 잔치하며 산다. 그들을 떠받들며 살다가 결국 물리고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

54. 확인하지 않고 행하면 '독약'도 먹게 되고 '독 과일'도 먹게 된다. 고로 따른다고 해서 다 좋아하지 말고, 진수성찬을 차려 준다고 다 먹지 말아야 된다.

55. <확인> 없이는 '진짜, 진실'을 알 수가 없다. <확인>으로 모두 다 알게 된다.

56. 어떤 일을 할 때 성자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조금만 확인하고 판단하지 말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장나게 확인해라. 그러면 실패가 없다.

57. 확인한 만큼만 알게 되고, 확인한 만큼만 드러난다.

58. 때가 되어 모든 것이 드러나는 시대다. 고로 시대 사명자가 '확인의 인봉'을 떼고 행한다.

59. <확인>은 '보화'를 찾게 한다.

60. 확인한 사람만 손해를 안 보고 '귀한 보물의 주인'이 된다.

61. <자기 자신>이 '보물'이다. '자기 차원'대로 <자기 자신>을 취급하고 생각하며 살지 말고, 영계에서 최고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자기 육 보물>은 '땅에서 평생' 가치 있게 쓰고, <자기 영 보물>은 '천국에서 영원히' 가치 있게 써라.

62. 지금 '휴거되는 삶'을 살아라.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는 세상 쪽에 중심을 두고 살게 된다. 네가 어느 지점에서 사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 확인하고 살아라.

63. '성자'와 '분체'가 얼마나 중하고 귀한지 확인하고 살면, 저마다 희망을 이룬다. 그러나 확인하지 않고 살면, 이를 희망도 못 이루고 애만 태우다 늙고, 인생 끝나게 된다.

64. '성자 분체'는 <겉>은 '보통 사람' 같지만, 확인하면 '성자의 육'이고, '시대를 구원하는 문'이고 '휴거를 이룰 문'이다.

65. <겉>은 '바위'이지만, <속>은 '황금성'이다. '속'을 확인하지도 않고 버리지 말아라.

66. 지금 다시 오신 성자가 그 육인 분체를 쓰고 인생들을 '구원'하며 '휴거'를 이루고 가는 중이다.

67. '하늘의 때'는 '인간이 계산하는 때'와 다르다.

68. 누가 '금'이라고 해도 확인하고, '금'으로 보여도 확인해라.

69. 남자로 보이고 여자로 보여도 속이고 분장하니, 확인해라.

70. 차원이 높은 자가 차원이 낮은 자를 속이면 모른다. 고로 <확인>이라는 '침단 분별의 사역자'를 사용해라.

71. 확실한 확인을 하려면, 성자에게 물어라. 확실히 말씀해 주신다.
72. 확인하지 않고 하면, 다친다. 해를 본다. 실패한다. 망한다. 다시는 기회가 없기도 하다.
73. 일만 열심히 하기보다 확인하고 행해라.
74. 교회를 사든지 얻든지, 땅을 사든지,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확인하고 해라. 또한 어떤 것을 받으면 혼으로, 영으로, 꿈으로, 계시로 확인해라.
75. 확인하지 않고 행하고서는 성자와 본체와 형제들을 원망하며 슬픔의 베옷을 입고 탄식하지 말고, 꼭 확인해라.
76. <확인>을 ‘성자’로, ‘본체’로 생각하고 확인해라.
77. ‘겉’과 ‘말하는 것’과 ‘생긴 것’이 다 다르다.
78. <겉>은 ‘산삼’인데, <속>은 ‘농사 삼’들이 많다. 인생도 그러하고, 모든 여건도 그러하다.
79. ‘외모’를 보고 택하지 말아라.
80.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길 때도 확인하고 주어라.
81. ‘아름다운 나무’만 보지 말고, ‘열매’까지 아름답게 여는지 1년 내내 기다리고 확인해라.
82. 사기꾼들과 속이는 자들은 <확인>을 제일 두려워한다.
83. ‘눈’으로도, ‘귀’로도, ‘입’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마음’으로도, ‘혼’으로도 확인하고 행하기다.
84. 하나님과 성자는 <확인하고 아는 자>에게 ‘줄 것’을 주고, ‘할 일’을 맡긴다. 고로 <확인한 자>가 주인이 된다. 알기 때문이다.
85. ‘자기 죄와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신앙의 실력’도 확인하고, ‘말씀과 기도와 관리와 설교와 전도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고쳐라. 안 되면 만들어서 해라.
86. ‘돈을 벌어서 빌딩을 짓는 것’보다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것’이 1000배 더 쉬운 일이다.
87. 자기 영을 휴거시키면 그로 인해 영원히 받으니, 자기가 행하고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받고 누린다.
88. <확인>은 ‘생명의 선물’이다. ‘거액의 돈’이다. ‘황금’이다. <확인>이라는 사역자를 사용하면 얻는다.

<2014년 7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안 죽으면, 희망이 끝이 없다. 그러나 죽으면, 희망은 거기서 끝나고 만다.
2. <신앙>도 그러하다. ‘신앙이 살아 있는 자’는 희망이 끝도 없지만, ‘신앙이 죽은 자’는 거기서 끝이다.
3. 사람의 희망은 첫째 ‘자기 자신’에게 있고, 둘째 ‘자기가 기르고 관리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도 그들을 보고 희망을 가지며 역사하신다.

4. 인간의 '육'이 죽으면, <육의 세계의 희망>은 '그 개인'도 끝나고, '관리한 자'도 끝나고, '하나님'도 끝난다. 하지만 그 '영과 혼'이 죽지 않고 생명권에 살아 있다면, <영의 세계의 희망>은 끝없이 일어난다.
5. <잠>은 '하나의 죽음'이다. 잠에서 깨면, 부활하여 산 자가 된다.
6. 개인이 배우고 알아서 개인이 하게 해 줘야 된다.
7. '은혜'를 받아도 '불'을 받아도 <개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 바로 식는다. 고로 <개인>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개인>이 알고 뛰어야 된다.
8.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니, <개인 신앙>을 넣어 줘야 된다.
9. 여럿이 같이 있을 때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나 개인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고, 세상을 쳐다보고 접한다. 고로 개인이 잘하게 해 줘야 된다.
10.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행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11. 선생은 지금도 매일 1500m씩 꼭 뛰다. 매일 지속적으로 뛰다. 나도 내가 불을 안 붙이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살아야 전체를 살린다. 개인이 하는 것이 그리도 강하다.
12. 선생도 개인이 혼자 행하여 '나'를 살리고, '전체'를 살린다.
13. 청중 집회를 하면 '청중의 힘'으로 인해 불을 받는다. 그런데 개인으로 쪼개져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 보면, 불이 꺼진다. 개인이 불타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집회 때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만 기다린다. 여름에 비 올 것만 기다리다가는 농사를 실패한다. 개인이 물을 주고 샘을 파서 사용하듯, 집회 때만 기다리지 말고, 개인이 스스로 불을 붙여 행하도록 해 줘야 된다.
14. <개인 신앙>이 그리도 크다. 집에 가면 개인, 학교에 가면 개인, 직장에 가면 개인, 교회에서 돌아오면 개인이다.
15. 개인이 잘하여 '생활화, 체질화' 돼야 혼자 생활할 때도 잘 견디고, 생활의 승리를 한다.
16. 집회 때 받은 은혜는 개인이 생활할 때 다 소모하고 까먹는다. 고로 혼자 있을 때 잠언도 외우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성자도 부르면서 자기가 '신앙에 재미'를 들여야 된다.
17. 매일 성자를 100번 이상 부르고 찾아라. 그러면 매일 다른 데 생각을 안 뺏기고 튼튼해진다. 꿈도 꾸게 되고, 계시도 받게 되고, 설교도 잘 들리고, 잘 깨닫는다. 고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힘을 받는다.
18. 인생 삶도, 신앙도 저마다 자꾸 해 보면서 '습관'을 들이고 '체질'로 만들면서 '재미'를 들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계속 잡아 줘야 된다. 그래서 변화가 안 된다.
19.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해 봐야 된다.
20. 개인에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없으면 탄짓을 하게 된다. '전도의 날, 강도의 날'을 줘서 전도하게 하고 강도하게 하면서 <숙제>를 내 주어야 한다.
21. <개인 신앙>을 넣어 줘야 설교해도 모두 살아서 날아다닌다.
22. 선생도 <개인 신앙> 성공해서 이같이 된 것이다. 산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개인 혼자였다. 여기서도 누구와 어울리지 않고 개인이다. 개인을 유능하게 만드니, 성자가 개인·가정·민족·세계적으로 쓰였다.

23. 주님의교회는 계속 교육하고 알게 해 주니, <개인 신앙>이 많이 들어갔다. 이제 교육받은 것을 생각하며 개인을 더 유능하게 만들면, 더 차원을 높이게 된다.
24. 혼자 있을 때 약해져서 마음이 돌아간다.
25. <휴거>는 개인이 되는 것이다. 생활 가운데 이루는 것이다.
26. 인생 삶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가 70~80%다. 고로 개인이 '사는 법'을 알고, 개인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개인이 혼자 있어도 행한다. 고로 개인이 잘하도록 만들어 주기다.
27. 지도자도 개인마다 보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엄청나다. 그런데 개인 혼자 있을 때는 약하고, 판짓하고, 생각이 육적으로 흘러간다.
28. 혼자 있을 때 자위행위 하고, 인터넷 보고, 음란물 보고, 연애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다. 여럿이 있을 때나, 교회에서나, 집회 때는 못 한다. 고로 <개인 신앙>을 넣어 주어 개인이 혼자 있어도 잘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29. 청중이 있을 때는 모두 잘하는 것 같아도 개인을 보면 아주 소수만 잘하지, 대부분 잘 못 한다. 그러니 한 교회에서 5명, 10명, 20명밖에 전도를 못 하는 것이다. 개인이 잘하면 혼자 10명, 20명도 거뜰히 한다.
30. 개인이 못 해서 섭리 부흥이 안 된다.
31. 개인이 잘해서 1년에 개인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1년에 수만 명을 전도한다. 그런데 개인이 못 하니, 10분의 1정도밖에 전도하지 못한다. 개인으로 보면, 10분의 1정도 잘한다는 것이다.
32.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개인이 약하다. 교육이 약하고, 그만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33. <개인>이 잘하면, <전체>가 모였을 때 더 엄청나다.
34. 선생도 개인이 잘하니 혼자 있어도 모두 감당하고, 혼자 있어도 강하다. 고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35. 개인으로 있을 때 사탄 주관을 잘 받는다. 자기 주관으로 생각한다. 고로 성자는 개인이 잘하게 해 주라고 하셨다.
36. <휴거>는 '개인 완성'을 해야 이루어진다.
37. '개인 가르치기', '개인 생활 잘하기', '개인이 신앙의 불을 붙여 스스로 행하기'다.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38. 여럿이 모였을 때는 불이 붙는데, 개인이 자기 불을 못 붙인다.
39. 자기 혼자 있어도 기도하여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을 보며 말씀의 불을 붙이고, 성자와 대화해야 된다.
40.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그 바람에 잘 존재한다. 담대해지고, 두렵지도 않고, 단체의 힘에 의해 심리적으로 힘이 있고 뜨겁다. 그러나 개인이 혼자 있으면, 자기 그릇에 떠 간 뜨거운 물이 식어서 두렵고, 무섭고,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41. 자기 '뇌'가 발전기가 되어 자기를 가동시켜 자기를 뜨겁게 해야 된다.

42. 개인이 자기 인생을 운전하게 만들어 주어, 혼자 어떤 일을 당해도 능히 해결하게 해 줘야 된다.
43. 집회 때 전체를 보면, 90% 휴거된 것같이 보인다. 그런데 개인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 고로 개인이 제대로 알고 잘하도록 교회에서 쪼개서 교역자가 교육하고 가르쳐야 된다.
44.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교역자가 불을 붙여야 하는데, 교역자는 모두 하나의 설교만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불이 안 붙는다. '휴거의 배'가 침몰한다.
45. 여럿이는 산에도 잘 가고, 월명동도 잘 간다. 그러나 혼자 산에 가라고 하면 갔다가 바로 내려오고, 혼자 월명동에 가라고 하면 못 간다. 신앙도 그러하다. 각 부서도 교회로 들어갔으니, 모두 개인이 잘하게 교육하여 개인이 스스로 '성령의 불'이 붙게 해라. 정기적인 성령집회만 기다리고 있느냐. 그럴 시간이 없다.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불을 붙이고, <개인>에게 불을 붙여야 된다.
46. 도시마다 성령집회를 하려면 열여섯 군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늦어서 '침몰하는 배'와 같이 되어 뒷사람들은 못 나온다. 못 구한다. 주일, 수요일, 새벽마다 교역자들이 말씀을 뜨겁게 외치며 성령집회를 해라. 단상 말씀 가지고 하면 된다. 그리고 말씀 후에도 확인하면서, 개인에게 알려 주어 자기가 확실히 알고 스스로 하게 해 줘야 된다. 설교로 불붙이거다.
47.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조은 목사가 생방송으로 동시에 전 세계 성령집회를 해 주면 된다. 그래야 비행기를 타고 가듯 해서, 올해 성자가 계실 때 모두 성자와 일체시키고, 미련 없이 성자를 보내 드린다.
48. 지금 섭리사는 '배가 침몰하는 시간'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다. 모두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교역자들이 모두 조은 목사처럼 성자와 주의 심정을 외치며, 주일과 수요일마다 부흥집회를 해 주며 '개인의 불, 휴거의 불'을 붙여야 된다. <지역별 집회>는 시간이 없으니, 조은 목사가 <전체 생방송>으로 해 준다. 불붙은 교회에는 조은 목사가 가서 순회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전국이 구체적으로 관리가 되어 확 달라진다.
49. 교역자, 부흥강사, 선생이 세 겹 줄이 되어서 하면, 바닥까지 청소하게 된다.
50. 교역자들은 각 교회 교인들을 휴거시키는 책임자다. '자기 교회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각오하고 해라.
51. 세월호에서 '빨리 나와라.' 이 한마디가 생명이었다. '휴거돼라. 그러려면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라.'이 말은 <지금 이때 우리를 향한 성자의 긴급한 말씀>이다. 이것이 '배에서 나와라.'와 같은 <비상 탈출 말씀>이다.
52. 성자와 분체는 그동안 1년에 수만 통의 편지로 관리하면서, 개인 문제를 풀어 주고, 개인 훈련을 시켜 주고, 개인에게 지시해 주었다. 그들은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고로 어떤 사람은 신입생인데 <휴거 200선>에 올랐고, 어떤 사람은 <휴거 300선>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휴거 100선> 초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역자들 중에서도 <휴거 100선>이 많고, <200선>은 일부다. 6월, 7월까지 <200선>에 들어가고, 8월, 9월, 10월에는 <300선>에 꼭 가야 된다. 그다음 시간부터는 배가 완전히 침몰하여 '선체'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라.
53. '시대의 징조'는 살아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사건을 거울로 삼아, 그것을 보고 깨달고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다.
54. 배가 기울고 있을 때 나오듯, 시대가 기울 때 즉시 행해라.
55. 시대가 기울었다. 성자가 가니, 시대가 기울었다.
56. 시험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 종이 울리면, 당황해서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못 한다. 고로 그 시간은 안 치는 것이다. 시대도 그러하다. 끝 시간은 치지 말고, 지금 어서 해라.

57. 실상 죽어 있는데, 푸른 바다를 쳐다보며 100% 희망을 걸고 행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오겠느냐. 구시대가 그러하다.

58. 구하러 온다고 하던 자는 육신이 죽었고 그 시대는 끝났는데, 아직도 그를 기다리며 100% 희망을 걸고 푸른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59. 생명은 약하다. 고로 생명을 구하려면 분과 초를 다뤄야 된다.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60. 선생에게 편지가 많이 올 때는 하루에 1300통이 온다. 그래서 선생은 각 교회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개인에게 신앙이 안 들어가 있고,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많다. 휴거가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많다. 교역자도 모르니, 교인들이 알겠느냐. 전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는다. 그러나 끝나면 그냥 간다. 로 개인에게 물어보고, 개인을 가르쳐 주어라. 몇 번만 거듭 가르쳐 주면, 자기를 구출할 방법을 알고서 행한다.

61. <전체>를 보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 면담>을 해 보면, 이것저것 꼭 해결할 것들이 많다. 그것을 해결해 주어 <개인 무장>을 시켜라.

62. <전체 모임>으로는 해결 안 될 것들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파악하면 해결된다. 성자 계시다. 즉시 실천하기다.

63. 쪼개서 하면 된다. 쪼개야 문제가 해결된다.

64. 개인마다 쪼개기다.

65. 각 부서도 쪼개서 각 교회로 들여보냈다.

66. <개인>이 든든하면, <전체>가 든든하다.

67. 개인이 잘해야 뿔힌다.

68. 인생은 ‘개인전’이다.

69. 개인을 완성시키지 못하면, 끝난다.

70. 개인이 배우고 잘하게 하면 어디를 가도, 혼자 있어도 잘 존재한다.

71. 개인이 잘하면 핍박도 환난도 스스로 이긴다.

72. 선생은 개인이 잘하니, 혼자 있어도 잘 지낸다.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73. 사도 바울도, 선지자들도 모두 개인이 잘했다.

74. 청중이 있는 데서 잘하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견디고 잘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 능력이 영웅적인 힘이다. 영웅은 힘이 있으니, 청중들을 잘 이끈다.

75. 설교 때도 전체 속에서 들으면 “아멘!” 하고 듣고 가고 거기서 끝난다. 그러니 설교 후에 바로 원고를 쥐도 설교를 못 한다. 그러나 개인을 데려다 놓고 설교해 주면, 100% 성공이다. 개인을 이해시키고, 풀어 주고, 설명해 주기 때문

이다. 그리고 원고를 주면 바로 설교할 수 있다.

76. 부서 지도자들, 목회자들 중에 <휴거>에 대해 그리 설교가 나가도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개인별로 따로 보면, 모르는 자들이 많다. 자기 먼저 배우고, 교인들도 개인이 다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교역자의 책임이다.

77. ‘합창’은 잘한다. 그러나 ‘독창’을 시키면, 소수만 잘한다.

78. 개인 레슨을 받으면, 바로 안다. 고로 성자는 예수님을 쓰시고, 선생 개인을 놓고 21년 동안 가르쳐 주셨다. 물을 시간이 있으니, 충분히 배웠다. 영계에서 여럿이 배울 때는 못 알아듣고, 물을 수도 없었다. 그 후에 개인으로 배울 때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다음에 실천했다.

79. 조은이도 유럽에서 여럿이 있을 때는 개인으로 못 가르쳤다. 그때 선생이 어려우니, 모두 자기 갈 길 가겠다고 떠났다. 공부해서 선생 도와주고, 돈 벌어서 선생 도와주겠다고 떠났다. 말이 그렇지, 자기 입장 생각하며 떠난 것이다. 조은이 혼자 부족하고 어리지만, 젊었을 때 혼자라도 남아서 선생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때 100% 시간 내서 다 배웠다. 개인이 강해지니, 개인이 선생을 알고 찾아왔다. 그 후 아시아로 옮겼을 때도 성자는 옆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선생을 통해 무섭게 배우게 하셨다. 개인이니 속 이야기도 속 시원히 말해 주고, 사명도 확실히 말해 주며,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 영에 대해, 영계에 대해 직접 보고 듣기까지 가르쳤다. 조은이가 어디까지 배웠는지는 조은이에게 배우지 않는 한 모른다. 그래서 “배운 자에게 배워라.” 하는 것이다. 그냥 노력해서 된다면, 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다. 먼저 선생을 통해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성령님과 성자께 직접 배우게 하고, 그다음에 청중 가운데 보내어 배운 것을 외치게 했다. 조은이에게만 기회를 주어 배우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기회는 모든 자들에게 있었다. 조은이 하나만, 남아서 나를 돕겠다고 했다. 결국 배운 자가 내 몸이 되어서 뛰고 있다.

80. 범석이도 선생이 개인적으로 편지하여 가르치고, 월명동 공사 때마다 가르치고, 지금도 월명동에 대해 계속 가르친다. 배웠으니, 월명동 일을 할 때마다 사고 없이 하고 있다. 배워야 성자도 역사하신다.

81.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82. 모두 개인을 가르치듯 가르쳐 주니, 배우고 가서 또 가르쳐라.

83. 목회자라면 더 알아야 되고, 지도자라면 더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

84. 배워야 가르친다. 들은 것이 있어야 가르친다.

85. 선생은 성자를 마치 한 방에 사는 여인같이 보고, 아무 때나 부른다. 여건이 될 때는 성자를 부르고 대화한다. ‘성자는 내 옆에 없어도 다 아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마치 내가 내 몸을 보듯 흰히 다 아신다.’ 이것을 100% 절대 믿고 산다. 혼자 있어도 이같이 사니, 내 정신과 생각이 영적 능력으로 인해 성자와 일체 되어 살게 되었다.

86. 한번은 성자께 “정말 내 옆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성자는 “네 살이 네 뼈에 붙어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붙어서 네 옆에 있다.” 하셨다. 성자를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해서 부른다. 두 번째 이유는 내 수준에서 모르는 것을 성자께 묻기 위해 부른다. 세 번째 이유는 섭리인들의 것을 물어보기 위해 성자를 찾는다.

87. ‘성자가 내 옆에 계시나?’ 의심스러울 때면, 성자는 “생활로 확인해.” 하셨다. “물어보면서 해.” 하셨다.

88. 지금은 ‘믿는 때’가 아니다. ‘신랑과 대화하면서 같이 사는 때’다.

89. 성자가 개인과 함께하신다는 사고를 안 심어 주면, 결혼하고도 각각 살아가듯 성자와 떨어져 각각 살아간다.

90. 선생이 학을 떼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자다. 자기 좋을 때만 성자를 찾는 자다. 그렇게 각오하고도 금방 변해 버리는 자다. 이런 자들은 은혜를 받아도 얼마 못 간다. 아무리 편지해 줘도 약하다. 개인 신앙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나 누구다. 나 찾지 마. 너 싫다. 신부로는 못 택한다. 하도 잘 변하니까. 그런 정신으로 주와 같이 살겠느냐.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한 인생이다.” 했다. 개인이 못 하니 은혜 받아도 금방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91. 성자와 주와 같이 살면서 개인이 잘해야 하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92. 변화무쌍한 인생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휴거됐다.” 하지만 자아도취이며, 자기 의지이며, 자기 생각이다.

93. 휴거된 자는 금방 알아본다. 자기 몸에 닿은 사람은 금방 알듯이, 금방 알아본다. 휴거되면 그같이 안 한다. 안 변한다. 고로 금방 알아본다.

94. 휴거된 자는 느낌이 온다. 휴거되면, 바다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배와 같다. 파도가 치면 그 영향으로 배가 약간은 흔들리지만,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다. 암초에 부딪혀도 마치 바닷물에 부딪힌 것과 같이 영향을 안 받고 안 뒤집어진다.

<2014년 7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옳다고 해서 다 허락할 수 없다.

2. <옳은 것>도 ‘인원수 제한’이 있다.

3. <개척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지역 인원수 제한’이 있다. 이와 같이 옳더라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나 왜 옳은데 허락해 주지 않느냐고 한다.

4. 스타 자격이 되고 본인이 원해도 ‘스타 인원수 제한’이 있다.

5. 잘해도 이미 ‘선수 수’가 찼으면, 그 팀에 못 들어간다.

6. <심정 일체>는 <부부 일체>보다 훨씬 더 높은 단계다.

7. <부부 일체>는 같이 살다가 이혼하고 떨어져 살기도 한다.

8. <심정 일체>는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인 것과 같아서 떨어지면 죽는다.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면 하루 종일 진액이 통하고, 결국 완전히 일체 되어 한 나무가 된다. 그러나 <부부 일체>는 통할 때만 통한다.

9. 가끔 만나면, 오래간다. ‘모순’도 ‘부딪힘’도 적어서 보고 싶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일체 되지 않았는데 같이 살면, 서로 ‘모순’을 많이 보고 들으니 안 맞는 것이 많아서 부딪히니 오히려 더 많이 헤어진다.

10. 100% 심정 일체 되면, 같이 살아도 헤어지지 않고 뜻을 이룬다.

11. 50%만 심정 일체 되면, 같이 살아도 자꾸 부딪히고 헤어지기 쉽다.

12. 매일 보면, 상대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본 것’보다 ‘안 본 것’을 선호한다.

13. 똑같은 것을 반복하면 지겨워서 권태가 온다.

14. 부부끼리, 애인끼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지만, ‘좋은 것’이라도 반복하니 권태가 와서 <눈>에도 <마음>에도 호기

심이 없어진다. 고로 ‘좋은 것’인데 보통으로 보이고 보통으로 느껴진다.

15. <사랑>도 방법을 달리하면서 새롭게 해라.

16. 사람의 <눈>과 <마음>은 민감하다.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싫증 나듯, ‘보는 것, 행하는 것’도 그러하다.

17. <자기가 행하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면서 새롭게 해라.

18.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봐도, 영원히 살아도 지루하지 않게 창조해 놓으셨다. 얼마든지 계속 감탄하고, 기절하고, 놀라고, 흥분되고, 기쁘게 창조해 놓으셨다.

19. <월명동>도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 수준 높고 차원 높게 만들었다. 고로 늘 봐도 권태가 없고, 지겹지 않고,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20. <월명동>을 보면 볼수록 별것도 아니게 보는 자는 ‘뇌의 차원’이 낮고, ‘뇌’가 굳었기 때문이다.

21. <월명동>을 볼 때마다 깊이 더 깨닫도록 ‘영의 눈, 혼의 눈, 생각의 눈’을 떠서 높은 차원으로 보아라.

22. <월명동>을 ‘육적 차원’으로만 보면 그만큼 보이고, ‘혼과 영의 차원’으로 보면 돌, 나무, 물, 지형, 사연 등 모든 것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여, 기뻐 감탄하면서 길바닥에 주저앉게 된다.

23. 하나님은 <월명동>을 합당한 지역으로 정하셨다. 그리고 돌과 나무의 형상을 뜻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것은 정말로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못 봐어도 믿어라. 자기 지체에 신비한 지체가 있듯이, 월명동에도 있다. 모두 알고 깨닫고 혼으로 보면 감탄하고, 기쁘고, 희망에 차고, 흥분되어 뇌에서 엔도르핀이 솟아나 폭포수가 된다.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개인이 잘하게 해라.

2.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 하라고 했다. 이때는 자신을 완성하는 <1000년 왕국 시대>다. 성자가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성약역사> 때다. 이때가 사망권을 완전히 벗어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때다.

3. 이때는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새 시대에 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고 성자와 일체 되는 때’다.

4.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가 끝나고 <성약 1000년 역사>가 시작되면, ‘다시 오신 전능자 성자’가 ‘세상에서 택한 구원자’를 통해 <신부 역사>를 펴는데, 이때가 ‘왕 같은 신부’로서 제사장이 되어 다스리는 때다.

5. 저마다 왕 노릇 하려면 개인이 잘해야 된다.

6. 개인이 잘하려면, 첫 번째로 배우고 알아야 된다.

7. 개인이 왕 노릇 하는 <1000년 왕국 시대>는 구약도 신약도 해당이 안 된다. <성약 1000년 주관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안에서 왕 노릇 하는 것이기에 <삼위일체>와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왕 노릇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존재를 제대로 모른다. 그러니 왕 노릇 할 수 없다.

9.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고, ‘그가 보낸 자를 아는 것’이다.

10. 하나님은 절대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주신다. 어린아이급 구시대에는 ‘새 시대급 말씀’을 줘도 모른다. 오직 <새 시대>에 ‘새 시대급 말씀’을 주신다.

11. 섭리인 전체가 모였을 때는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잘 못 한다. 고로 개인이 잘해라.

12. 전체가 있을 때는 힘이 되고, 의지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타오른다. 하지만 개인으로 돌아가면 못 하고 안 한다. 성령의 불도 식어서 힘들어하고, 각종 죄를 짓는다.

13. 혼자 있어도 잘하게 해 주어라. 스스로도 잘하면 진리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전도, 기도, 강의, 증거,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관리, 감사, 충성’을 잘하게 된다.

14. 선생도 개인이 잘하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섭리역사를 이끌어 올 수가 없었다. 개인이 잘해야 승리하고, 하나님과 성자가 인정하신다.

15. 선생은 지금도 어디에 가서 집회 한 번 참석 못 해도 개인이 잘하니, 오히려 섭리 전 세계에 말씀을 받아 주고, 섭리 전체를 지도한다.

16. 모진 환난과 핍박, 배고픔, 굶주림, 사탄과 악한 자들과의 싸움... 모두 개인이 잘해야 다 이기고 역사를 펴게 된다.

17. 개인이 못하면, 선생 혼자 어떻게 이곳에서 편지를 써 주고, 관리하고, 섭리 전체를 지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게느냐.

18. 개인이 못하면 <책임분담>을 못 한다. <책임분담>을 못 하면 실패한다.

19. 자기가 혼자 ‘자신’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려야 잘 존재할 수 있다.

20.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나이가 들어서 혼자서 살 수 없는 사람이나 혼자서 못 하지,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혼자서 하며 살아야 된다.

21. 사람은 청중 속에 있는 시간보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가 더 많다. 고로 개인이 잘해야 된다.

22. 청중 속에서나,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데서도 결국은 개인이 잘해야 존재하게 된다.

23. 동물들도 어미는 새끼가 혼자서 잘하도록 가르치고, 사냥 법도 가르쳐 준다.

24.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주어, 혼자 있어도 마음 놓이게 해라.

25. 청중이 있으나, 혼자 있으나 결국 개인이 잘해야 꼭 죽을 곳에서도 살게 되고, 얻을 축복도 얻고, 찾을 것도 찾고, 누릴 것도 누린다.

26. 개인이 잘하지 못하면 줘도 못 누리고, 줘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

27. 개인이 잘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28. 개인이 잘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지옥 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29. 개인이 잘하면, 죽을 곳에서도 살아 돌아온다.

30.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줬다면 육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고, 신앙도 죽지 않았다.

31.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주면 부모도, 애인도, 관리자도 발 뻗고, 마음과 생각을 쭉 뻗고 단잠을 자게 된다.

<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32. 성자의 말씀 받고 아는 자가 ‘신’이 된다.

33. 모르면 매일 자기를 죽는 길로 가게 몰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34. 모르면 ‘자기 육’이 육적으로만 흥분되어 살면서, ‘자기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 불바다에 푹~ 떨어뜨린다.

35. ‘육’이 세상에 속해서 육적으로만 재미있게 살면, 결국 흑암과 연결되어 ‘그 영’이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구원하고 휴거시킬 때, ‘시대 구원자’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어 그 말씀을 외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시대 말씀’을 알고 행하게 하여 구원받고 휴거되게 하신다.

37. 왜 ‘성령의 불’로 역사하며 은혜를 주겠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준다.

38. 어떤 사람은 성령집회 때 은혜 받았다고 만족하며 산다. 그것이 아니다. 말씀을 행하여 휴거되라고 ‘성령의 불’을 준 것이다.

39. 스스로 못 하니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행하여 휴거되라고 은혜를 주었다. 이것을 빼가 저리도록 깨닫고 불 받았을 때 행해라. 불 식으면, 힘들어서 못 한다.

40. 부모도, 애인도, 관리자도 계속 손잡고 데리고 다닐 수 없다. 고로 개인이 어디를 가도 날렵하게 잘하도록 가르쳐 주면 마음이 놓인다.

41. 물가에 못 가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한 물을 때에 따라 잘 다스리도록 가르쳐 주어라. 먼저 자기가 수영하는 법을 배워 잘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남에게도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물가에 가도 걱정이 안 된다.

42. 수영을 잘하는 자가 물이 가로막는다고 걱정하겠느냐. 수영으로 안 되면, 나룻배나 고무배를 타고 간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군함을 찾아 타고 갈 것이다. 개인이 잘하도록 ‘처세’까지 가르쳐 주어라.

43. ‘지도자’가 못 하는 교회는 ‘교인들’도 못 한다. 너무 못 하는데도 안 배운다. 그러면 전체가 손해이니,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

44. 모르는 자는 사고를 당해도 해결을 못 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는다.

45. 지도자가 못 해서 많은 생명들을 바다에서 죽게 하고, 육지나 산에서 죽게 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46. ‘먹을 것’만 주지 말고, ‘사랑’만 해 주지 말고, 가르쳐 주어라.

47. 어려도 배우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몰라서, 못 해서 하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 안 가르친 부모와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48.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노는데 개가 짖으면서 다가왔다. 즉시 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부모가 안 가르쳐 줘서 개에

물려서 죽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 많이 먹여서 그 어린아이는 살도 찌고 건강했다. 하지만 가르쳐 주지 않았다.

49. 다른 아이는 엄마가 미리 가르쳐 주어 개가 짖으면서 다가오니, 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개가 짖으면서 방문 앞에 왔다. 아이는 즉시 방문을 잠그고, 엄마가 준비해 놓은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개의 눈을 쿡 찔렀다. (한국의 옛날 집의 방문은 나무 창살에 창호지를 발라서 해 놓는다.) 개는 사경을 헤매며 뒹굴다가 도망갔다.

50. 성자가 가르쳐 준 대로 배우고 행하여, 악인도 사탄도 그 행위대로 모두 받게 해 주었다.

51. 정신이 뒤집어져서 미쳐 행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면, 미친 짓을 하다가 남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한다. 고로 그냥 놔두지 말고 피해라. 나무로 올라가라. 물에 들어가 수영해서 피해라. 그러면 미친 사람은 따라오다가 모세 때 이집트 마병대처럼 죽는다. 혹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위 위에 떨어진 달걀 신세가 된다.

52. 모두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개인이 할 일을 개인이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개인이 잘해야 성공한다.

53. <기도>도 응답을 받도록 개인이 잘하여라.

54. 청중 속 은혜만 중심하면, 은혜를 받아도 개인이 평소에 못 하니 약하다.

55. 군중심리로 힘을 받는 자는 개인이 혼자 있으면 두렵고, 걱정되고, 떨린다. 그러나 개인이 잘해 버릇하면 개인 혼자 있어도 많은 힘을 받고, 청중 속에서도 흡수력이 강하다.

56.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하던 사람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잘 못 한다.

57. 개인이 잘 못 하는 사람은 성령집회나 모임만 기다리고, 누가 잡아 주고 함께해 주기만을 기다린다.

58. 대집회는 1년에 한두 번뿐이다. 모임도 자주 안 한다. 그러나 개인은 온종일 기회가 있다. 깨달아라. 개인이 잘하게 해라.

59. 개인이 잘하면 악인, 악평자, 사탄이 건드리고 침범해도 다 이긴다.

60. 개인이 안 하는 자는 거의 게으르다.

61. 청중이나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는 혼자 있을 때 고양이만 와서 ‘야옹’ 해도 머리끝이 서고 소름이 끼친다. 강아지만 짖으면서 쫓아와도 두려워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른다.

62. 개인이 유능하게 잘하면, 산이나 어디에 혼자 가도 ‘뭐 안 나타나나?’ 하면서 ‘에이, 심심해.’ 한다. 그러다 뱀이라도 나타나면, 날렵하게 돌이나 지팡이를 들고 때려잡는다. 그러다 짐승이 쫓아와서 입을 벌리고 대들면, 지팡이를 입에 넣어 배 속까지 쿡 찔러 넣고, 큰 돌을 입에 꼭 끼워 넣고 잡아온다.

63. 다윗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두려워하던 무장한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잡고, 자기에게 칼이 없으니 골리앗 장군의 칼을 빼내서 목을 잘라 메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바쳤다. 그러니 사울은 자기 딸을 주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

64.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개인이 잘하도록 만들어, 용감하고 용맹스럽고 개인이 잘하는 영웅이 되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적국의 군대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타나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다 인식하고, 쫓기는 개처럼 도망쳤다.

65.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했다. 그러다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

나님의 말씀대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사울이 이끄는 군대는 패했다. 사울 왕은 적의 손에 죽으니 자기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면서, 할복자살했다. ‘하나님이 보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짓값’을 받은 것이다. 그 짓값은 영계로 이어져 지금도 사울의 영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한 짓값’을 받고 있다. 이 시대 사명자를 미워한 자들도 그러하다. 결국 행위대로 받는다.

66. 개인이 잘하니,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도 같이 행하셨다. 고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웃 나라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40년 동안 태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렸다.

67. 하나님은 ‘의인들의 간구’를 듣고 역사하시며 함께 행하신다.

68. 하나님은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악인들이 회개하는 것’만 들으신다.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69. 지도자들은 생명들을 꼭 쥐고 끌고 다니지 말고,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주고 자유롭게 행하게 해 주어라.

70. 어떤 지도자는 자기가 생명을 잘 가르쳐 줄 기술이 없으니, 날아갈까 봐 새 모가지를 쥐고 있듯 생명을 꼭 쥐고 있다. 그러면 신앙이 죽는다.

71. 어떤 지도자는 생명을 마치 강아지에게 목줄을 매어 끌고 다니듯 끌고 다닌다. 가르치고 훈련해서 개인이 잘하게 해라.

72. 지혜로운 지도자는 자기가 잘하니, 생명을 월명동 극기봉이나 산책로에 데리고 다니면서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준다. 고로 그 생명이 좋아서 편지를 보내온다.

73. “월명동의 자연 소나무 중에서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기른 소나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오후 1시에 거기 있을 테니,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게.” 했다 하자.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소나무 밑에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왜 안 오지?” 하고 기다린다. 모르면,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들을 다 붙잡고 있어도 못 만난다. 구시대 기성은 ‘이 시대 성자의 사연이 있는 자’를 모르고, 참나무나 다른 소나무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

74. 월명동 자연성전의 모든 것들을 보기만 하고, ‘사연’을 정확히 안 배우고, ‘위치’를 정확히 안 배우면, 알기는 알아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써먹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르쳐 주지도 못한다. 그리고 치매 환자같이 헛소리하며 자기 주관대로 잘못 설명한다.

75. 배우되, 자세히 배워라. 월명동 소나무와 바위의 사연과 위치를 정확히 아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조은 목사는 이를 알고, 가서 정확히 배우고 왔다. <말씀>도 그같이 확실히 배우고, <성자와 분체>도 그같이 확실히 배우고, <하늘 언어>도 그같이 확실히 배웠다. 그와 같이 다른 것들도 모르면, 확실히 배우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배우니, 성자가 분체와 함께 그 몸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표상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라는 것이다.

76. 선생은 성자와 함께 그동안 조은 목사를 가르쳤다. 개인이 잘하게 가르치면서, 평소에 훈련을 시켰다. 결국 자기가 배우고 개인이 잘하게 하여, 개인이 잘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행하게 했다.

77. 섭리인 모두 선생이 10년,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개인이 잘하도록 다 가르쳐 주었다. 조은 목사만 특별히 가르친 것이 아니다. 조은 목사는 가르쳤을 때, 본인이 행했기에 개인이 잘하게 된 것이다. 모두 가르쳐 줬는데, 아직도 개인이 못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개인이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78. 지도자들이 길이 잘못 들면, 청중이나 사람들이 있을 때만 하게 된다. 개인이 잘해야 된다.

79. 어떤 지도자는 청중이나 교인들이 있을 때는 잘한다. 그러나 개인 혼자 보내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다.
80.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1:1로 통하는 시간'으로서 '신과 통할 최고로 좋은 기회'다.
81. <육>은 혼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기 혼>도 있고 <자기 영>도 있다. 자기 혼과 영과 같이 하여라. <혼과 영>도 '신'으로서 유능하다. <육>이 <혼과 영>과 함께 신령하게 행하면,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된다. 그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신다. 개인 혼자가 아니다. 여기에 <천사>까지 함께하면, 혼자 있어도 10~20명이 같이 있는 것이다.
82. 청중이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도우니, 군중심리에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음란물도 보고, 게임도 하고, 이성 죄도 짓고, 각종 죄를 짓는다. 그러다 사탄과도 같이 놀고, 자기 스스로 사탄 집까지 찾아간다. 개인이 못 해서 그러하다.
83. 사탄이나 악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나, 성령집회를 할 때나, 모임 때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손을 못 댈다. 그러다 혼자 있을 때 개인이 못 하니, 따라다닌다. 사탄은 야비하고 비굴해서 우리가 소리만 질러도 도망간다. 자기 권한만으로도 소리를 질러 사탄을 도망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못 해서 사탄이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한다.
84. 개인이 잘하면, 사탄이고 악인이고 다 불신하면 된다. 불신하면 이긴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고 자기가 불의한 행위를 하니, 사탄이 와서 그 불의한 행위에 동참하여 같이 한다.
85. 혼자 <자기 마음과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절벽에도 오르고, 배고프지 않게 살게 되고, 험한 세상에서 밟히지 않는다.
86.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찌르고 처리해라. 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87. '자기 검'이 없으면 잠깐 '분체의 것'을 빌려서 사탄을 찌르고, 다시 분체에게 돌려 주어라. 분체는 "안 돼. 내 거야." 하지 않는다. '성자의 것'도 수백만 개 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 검이다.
88. '검으로 사탄을 찌러 이긴다.' 함은 '평소에 자기 할 일을 육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꿈에 자기 혼이 검이나 몽둥이로 뱀을 잡는 것을 보여 준다.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잡거나 물리친 것이다.
89. 선생은 하루 종일 그동안 밀린 일들을 기어이 했다. 그날 밤, 내 혼이 큰 몽둥이로 엄청나게 큰 뱀을 때려잡는 꿈을 꿔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뱀이 나타난다. 그놈도 잡아야 여기서 편히 산다.' 했다. 이후에 또 할 일이 생기니,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을 성자가 계시해 주신 것이다. 다음 날, 또 서류들을 완전히 쪼개서 정리했다. 또, '생활의 사탄, 생활의 뱀'을 완전히 때려잡은 것이다.
90. 개인이 잘하여 <육>이 '생활의 승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혼>도 승리하고 <영>도 승리하여 휴거된다.
91. 개인이 잘하는 자들이 뭉쳐서 함께하면 웅장하고, 강하고, 아름답다.
92. 개인이 못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해도 힘이 없고 웅장함도 없다.
93. 개인이 잘하면, 성령집회 때 '불'을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서 큰 산에 불붙듯 하게 된다.
94. 한 나라의 군인들도 개인이 못 하면, 뭉쳐도 힘이 없다.
95. 헬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기, 절벽 타기, 총 쏘기, 대포 쏘기, 미사일 날리기... 모두 개인이 할 줄 알아야 하지, 개인이 못 하면 무용지물이다.

96. 악인은 개인이 잘해도, 잘하는 만큼 망한다.

97. 밥 먹듯, 잠자듯, 옷 입듯, 목욕하듯, 목 탈 때 물 먹듯, 개인이 배워서 모든 일을 유능하게 해야 된다.

98. 개인이 잘하여 <육>이 빨리 행하면, <혼>도 <영>도 빨리 온전히 변화되어 <휴거 300선>을 넘어가게 된다.

99. 군대에서 <특공대>는 거의 혼자서 해결한다. 개인이 유능하기 때문이다. 그같이 개인이 유능해야 된다.

100. 스키 탈 때도 개인이 잘 배워서 날아다니듯, 신앙에서도 인생 삶에서도 개인이 잘하도록 배우고 날아다녀라.

101. 개인이 못 하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는다.

102. 어려운 일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많이 일어난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성자께 붙어서 번개같이 처리해야 된다. 또 지도자도 부르고, 동료도 불러서 같이 처리하면 된다.

103. 개인이 잘하라는 것은 꼭 혼자서 단독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다. 머리를 써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고, 기계가 필요하면 기계로 하고, 뇌 차원을 높여서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다.

104. 나이 든 사람도 개인이 잘하도록 인생을 가르쳐 줬는데, 개인이 잘하지 못한다. 그러다 홀연히 그 날이 닥치면 자신감을 잃고 낙심하고 “하늘이 야속하다.” 하면서, 혼자 쓸쓸히 자기 길로 간다.

105. 성자는 매일, 매주 구원자를 통해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이 ‘문제 해결의 답’이다. 그것을 배우고 행하면 된다.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개인 불붙이기 조건 기도 18일째

106. 지금은 개인이 잘해야 되는 <황금기 시대>다.

107. 개인이 잘하면, 개인이 얻어 ‘개인 것’이 된다.

108. 여럿이 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럿이 먹어야 된다. 개인이 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서 혼자 다 먹고 보람을 느낀다. 또한 물고기 한 마리만큼의 힘을 받고, 행하게 된다.

109. ‘밭에 감춰진 보화’도 여러 사람이 발견하면 나눠 가져야 하니, 실상 얻는 것이 별것도 아니다. 개인이 잘하여 혼자 발견하면 다 자기 것이다.

110. 선생이 어렸을 때 여럿이 나무를 하러 가서 ‘포도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러나 몇 알씩 따 먹으니 없어서 입만 버렸다. 또 없나 뒤지다가 벌통을 건드려서 벌에 쏘이기만 했다. 혼자 있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발견하면 충분히 먹고, 그 힘으로 더 나무를 했다.

111. 또 선생 혼자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몇 시간 동안 힘들어도 쫓아가서 잡았다. 개인이 통째로 사용하니 좋았다.

112. 또 선생 혼자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힘들지만 쫓아가서 잡았다. 그것을 팔아서 ‘돈’으로도 받고, ‘보리’로도 받았다.

113. 개인이 할 때는 조심하면서, 확인하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선생 10대 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그 충격으로 심장이 멈춰서 죽을 뻔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며 살려 달라고 했다. 개인

이 할 때는 꼭 조심하면서 하라고 단단히 훈계받고 살아났다. 그 후 개인이 잘하는 것을 배우고 행했는데, 나무에서 떨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극히 조심하면서 했다. 고로 한때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 120그루를 가지치기 하는데, 하루 만에 그 많은 나무를 오르내리며 다 했다. 안 떨어졌다.

1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가 되면, 한 시간도 미루지 않고 행하신다. 매일 행하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생이 나오면 그때 한다고, 매일 먹고 자면서 준비만 한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때는 지나가고 끝난다. 지금 교통하면서 하는 것이다.

115.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이 타국에 갔는데,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한다고 하면서 논밭도 과일나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자녀들도 그냥 내버려 뒀다. 결국 논밭도 과수원도 잡초 동산이 되어 버려 산짐승들이 와서 살게 되었고, 자기 자녀들의 마음도 잡초 동산이 되어 버려 사탄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살았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깨달아라!

116. 어떤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사 놓고 자기 애인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껴안고 있다가, 시간이 가니 녹아서 치마에 줄줄 흘러내렸다.

117. 사람들은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맞기만 하려 한다. 혹은 그때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계속 준비만 한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맞는 것이다.

118.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주면, 악평자들과 생명 사냥꾼들이 꺾어도 담대히 불신하고, 하나님께 고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꿈에서 사탄의 행위라는 것을 낱알이 보고, 신입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감동도 준다.

119. 악인과 악평자를 불신하는 만큼 ‘자기 공적’이 된다.

120. 어떤 신입생은 중학생인데, 악평 글을 찾아보았다. 악평 글을 보고나서 악평한 자들의 행위가 악함을 알고, 그 행위가 참으로 무식하고 악하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가 어느 때라고 그런 무지한 짓들을 하느냐고 개탄하면서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개인이 잘하니 ‘영원한 죽음’을 피하고, ‘천국 길’로 오게 되었다.

121. 남들과 같이 안 해도 개인이 잘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122. 수영도 개인이 못 하면 창피하게 튜브를 끌고 다니고, 물놀이 기구를 잡고 다녀야 된다.

123. 월명동 돌 조경을 쌓을 때, 날고 긴다는 돌 조경 기술자들이 왔는데도 못 하는 것들을 선생은 개인이 잘하게 하여 하나님과 성자의 마음에 맞게 행했다. 선생이 감독이 되어 성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여 ‘결작’을 만들었다.

124.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돌을 쌓았어도 다섯 번이나 무너졌다. 돌이 무너질 때마다 ‘돌 쌓는 법’을 배우면서 여섯 번째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최고로 멋지게 잘 쌓아서 <야심작>을 완성했다.

1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자’가 하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 고로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성삼위의 일을 해 드려야 된다. ‘후손’들과 ‘영계’에까지 남기기 위해서다.

126.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사랑하는 자들’이 행하게 하며 역사를 펴 나가셨다. 고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다. 고로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증거하며 따라하게 하셨다.

127. <휴거 역사>는 개인이 의를 행하면서 이뤄야 된다.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28. 개인이 잘하도록 배워서 하지 않고, 늘 누가 같이 해 줘서 해 버릇하면, 하나님과 성자가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아서 뇌의 사고가 굳어져서 약하다. 그러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 닥치는데, 그때 혼자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빨리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고로 다치거나, 안타깝게 죽기도 한다.

129.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개인이 못 하니, 미련하게 땅에 묻어 놓았다. 개인이 잘하면,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유익을 남긴다.

130. 개인이 못 하는 자는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와 같다.

131.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개인이 잘하도록 가르쳐 줬으니, 개인이 잘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132. 교회에서 <전체>를 보면, 모두 잘하는 것 같다. <개인>을 보면,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된다.

133. 개인이 ‘강의’를 잘하느냐. 개인이 ‘기도’를 잘하느냐. 개인이 ‘말씀 증거’를 잘하느냐. 개인이 ‘성자와 분체’를 제대로 아느냐. 개인이 ‘성자를 사랑’하며 사느냐. 개인이 ‘시험과 핍박’을 이기느냐. 개인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알아서 하느냐. 휴거될 자들이 혼자 있으면 썩은 문화나 접하면서, 못 참고 썩은 자들이 하는 행위나 하고 있다. 이에 성자가 “너, 나 좀 보자.” 하신다.

134. 개인이 잘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135. 청중집회 때 은혜 받고, 힘 받고, 전환하고, 변화되려고 그 날만 기대하느냐. 집회 중독되면 힘들다. 이런 사람은 다 컸어도 엄마 품을 못 벗어나서 사는 자와 같다.

136. 이미 성자는 개인이 잘하도록 분체를 통해 ‘뇌 기능’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137.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의식하고 말씀해 버릇하면 그때만 열 내고 잘하게 되고, 몇 명이 모였을 때나 소모임 때는 심리적으로 능력이 안 나가고, 소홀해지고, 힘을 못 받는다.

138. 자꾸 청중집회나 큰 모임을 통해서만 힘을 받아 버릇하면, 나중에는 적은 인원이 있을 때는 힘을 잘 못 받는 것이 <절대 법칙>이다. 고로 개인이 잘하라고 역사의 방향을 돌렸다.

139. 성자께 기도하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섭리사가 잘될까요? 수천 편의 성자의 계시를 전해 주고, 수시로 부흥집회를 해 주어 불바다로 만들어 주고, 또 주일과 수요일과 새벽마다 황금 같은 말씀을 전해 줘도 부흥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생각만큼 안 됩니다. 잘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구했다. 성자는 “개인이 잘하게 해라.” 말씀해 주셨다.

140. 섭리사 한국에서만 1년에 700여 명의 생명들이 나간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엄청나게 힘들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기도하고 행하여 한 명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경제 지원을 하여 전도했다. 그러나 결국 ‘말씀’을 확실히 알게 하고,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을 못 하니 생명들이 나간다. 사탄과 악인들은 개인이 혼자 있을 때 채어 간다.

141.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주어 개인이 <책임>을 하게 해 줘야 관리자도, 전도자도, 교역자도 지치지 않는다.

142. 개인이 잘하여 실천하게 만들어 놓으면, 개인이 알아서 관리자보다도 더 잘한다. 모르니 못 하고, 안 해 버릇하니 겁이 나서 못 한다.

143. 사도 바울은 개인이 잘해서 ‘신약역사의 큰 혜성’이 되었다. 고로 성자가 그리도 귀히 쓰셨다. 사도 바울은 처세를 잘했다.

144. 개인이 잘해야 ‘한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국가 대표’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영웅’도 된다.

145. 내 동생 범석이와 용석이가 10대일 때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을 때, 선생이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기고 앞산에서 감람산 집터골까지 눈 속을 다니며 훈련시키면서, 개인이 못 하면 세상에서 처참히 짓밟힌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 때 성자가 선생을 통해 개인이 잘하도록 가르치신 것이다. 그 훈련이 100년 된 산삼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더 컸다. 그날 훈련을 다 하고, 맨 손으로 나무를 한 짐씩 하여 메고 와서, 다시 옷을 입게 했다. (선생님 초안 가지고 색깔 칠해서 잠언 내용에 따라 움직이는 화면으로 보여 주기.)

146. 한 번 교육해 준 것을 생명시하고 안 버리면, 평생 쓴다. 고로 ‘땅에 속한 것’도 얻고 ‘하늘에 속한 것’도 얻는다. 개인이 잘하게 하라는 말씀을 할 만큼 해 주었으니, 이 말씀을 평생 뇌 속에 넣고 살아라. 그러면 죽음도 피하고, 얻은 복도 많이 얻게 되리라.

147. 개인이 잘해야 올해 황재하고 대길하는 꿈대로 개인마다 꿈이 이루어진다.

148. 범석이는 개인이 잘하게 만들어 놓으니, 선생이 해외 가서 선교하느라 한국에 못 오고, 환난기라 한국에 못 오는 때에 성자와 분체의 지시에 따라서 <교단>도 짓고, <성자 사랑의 집>도 짓고, <돌 조경>도 더 하고, <산길>도 냈다. 모두 개인이 잘하여 ‘성자와 분체의 몸’이 되어 행해라.

149. 선생도 개인이 잘하게 하여, 밖에 있을 때보다 여기서 더 깊이 말씀을 전하고, 성자의 분체로서 더 뜨겁게 불나게 행한다.

150. 조은이도 개인이 잘하게 만들었기에 이 같은 때에 ‘선생의 육’이 되어 ‘분체가 할 일’을 행한다. 조은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섭리 전 세계에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느냐. 모두 이같이 개인이 잘해야 하는 <황금기>를 살고 있다.

151. 선생이 여기서 만민을 위해 <구원의 조건>을 세울 때, ‘내 육’이 되어 정말 잘해야 된다.

152. <성자 사랑의 해>이니, 개인이 잘하여 배로 해야 되는 때다.

153.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 자기가 유능하게 잘해야 된다.

154. 개인이 때를 맞추어 숨을 쉬듯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노력하고 숙달되어 잘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개인의 것들’을 다 받고 누리며, 영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된다.

<2014년 7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55. 개인이 잘하면, ‘보람’이 있고 ‘사연’이 남아 평생 ‘이야깃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교육 거리’가 된다.

156. 개인이 잘하게 만들면, 혼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당해도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처리한다.

157. 개인이 잘하려면 배우고, 연단받고, 거듭해 봐야 된다.

158. 개인이 잘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돕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하니 좋고, 자기가 하니 돈도 안 들어가고, 편하고, 경제 문제도 더 좋게 해결된다.

159. 자기가 혼자서 할 줄 알면 자기가 기도하여 영계도 가고, 성자와 분체도 만나면 된다.

160. 개인이 못 할 때는 운동기구에 의지하여 운동했는데, 개인이 잘하게 되니 자기 몸을 운동기구 삼아 운동하니, 돈도 안 들어가고 이상적이었다.

161. 개인이 잘하면, 미리 건강을 관리하여 건강해서 좋다. 개인이 못 하면, 자기가 자기를 병들게 내버려 두어서 수한 전에 죽고, 병이 들어 고생도 많이 한다.
162. <개인이 꼭 할 것>은 첫 번째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그래야 개인이 잘하는 자가 된다.
163. <개인이 하면서 제일 조심할 것>은 ‘자기 주관, 자기중심으로 빠져서 행하는 것’이다. 고로 항상 나침반을 보고 가듯, 절대 성자와 분체를 중심해야 된다.
164. 개인이 잘해야 <자립 신앙, 독립 신앙>을 한다.
165. 개인이 잘해야 ‘지도자’가 된다.
166. 개인이 잘해야 ‘성자’와 일체 되고 ‘분체’와 일체 된다.
167. 개인이 잘해야 혼자서도 ‘영계’에 가고, ‘천국과 지옥’도 가 보게 된다.
168. 개인이 잘해야 왕따를 당해도 오히려 시간이 더 생기니 좋아한다.
169. 개인이 잘하면 외로움, 쓸쓸함, 고독이 상관없다.
170. 개인이 잘해야 사기도 안 당한다.
171. 개인이 잘하면, 하늘과 땅에서 눈에 확 띈다.
172. 개인이 잘하면, <사탄 세계>에 소문이 나서 사탄이 무서워서 안 찾아온다.
173. 개인이 잘하면, <천국>에도 소문이 나서 천군도 막 투자한다. 승리할 자이기에 투자한다.
174. 개인이 잘하니, 청중도 응원해 준다. ‘개인의 힘’과 ‘청중의 힘’이 만나니, 에너지가 차고 넘쳐 더 잘하게 된다.
175. 개인이 잘해야 ‘개인 금메달’을 탄다. 신앙도 그러하다.
176. 개인이 잘하는 자에게 배워라.
177. 나이가 들었어도,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됐어도 개인이 못 하는 자는 믿고 따르지 말아라.
178. 성자는 개인이 잘하는지 확인하러 가신다.
179. 개인이 잘하는 자만 성공한다.
180. 인생은 ‘개인전’이다.
181. 전쟁터에서도 개인이 못 하는 자는 거의 다쳐서 불구가 되거나 죽는다.
182. 운전도 개인이 못 하니 사고 나서 다쳐서 불구가 되거나 죽는다.
183. 개인이 못 하면, 개인이 존재를 못 하게 된다.

184. 개인이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도록 유능하게 만들어라!

185. 개인이 잘하는 자 한 사람을 지구 세상 70억 명이 못 따라간다. 고로 땅도 하늘도 그를 크게 쓴다.

186. 시대 구원자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중심인물들도, 사사들도 다 개인이 잘했기에 하나님께 뽑혀서 쓰임 받았다.

187.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지 않으신다. 시대 구원자, 선지자, 중심인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많이 안다. 그러나 무지한 자들과 소경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가한다. 그러나 사명자는 “내가 너보다 이같이 더 많이 안다.” 하지 않는다. 오직 따르는 자들에게만 조금씩 가르쳐 준다.

188. 한 번에 다 가르쳐 주면 “이제 됐다.” 하고, 섭리사를 나간다.

189. 섭리사 21년 공적 역사가 끝나고 1999년 환난 직전에 “20년 동안 배웠으니 더 배울 것이 없다.” 하며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14년의 무덤 기간이 끝나고, 성자는 <휴거>와 <성자 본체>를 선포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깊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 2500편의 계시를 주시며 꼼짝 못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를 펴 나가셨다. 이래도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섭리인들도 있다. 이들은 <휴거 들러리>에 불과하다.

190. 끝까지 가야 ‘끝’을 보고,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보고, ‘주의 행함’을 보게 된다.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책임>은 여러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자기 책임>은 자기만 하면, 책임을 한 것이다.

2. <최고의 자리>는 ‘성자 생각’을 가장 많이 실천한 자가 차지한다.

3. <두 번째 자리>는 ‘자기 생각’을 가장 많이 실천한 자가 차지한다.

4. 빨리 행한 순서대로 ‘순위와 위치’가 결정된다.

5. ‘빨리 행하는 자’만이 자기 앞의 <사탄>도 처리하고, <해됨>도 처리한다.

6. 위급할 때는 ‘빠른 자’만이 위기를 피해서 산다.

7. <휴거>도 ‘빠른 자’가 한다.

8. <새 역사>도 ‘빠른 자들’만 왔다.

9. <불가능한 것>도 ‘빨리하면’ 할 수 있다.

10. 하기는 하되 늦게 하면, 늦게 한 만큼 그 위치의 것밖에 못 한다.

11. <달리기경주>는 어린아이와 어른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인생 삶의 경주>와 <신앙의 경주>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빨리하면 앞에서 뛸 수 있다.

12. ‘빨리하는 자’란, 제때, 제시간에 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빨리 행하는 자는 <생각>과 동시에 순간 행한다.

14. <순간 생각>, <순간 실천>이다.

15. <생각>과 함께 <몸>이 동시에 실천하게 하여라.
16. 빨리 행하려면, <생각>과 같이 동시에 <몸>이 따라서 행하기다.
17. <생각> 따로 <몸> 따로 행하면, 항상 늦어서 못 하게 된다.
18. <생각>과 동시에 행하기다.
19. <생각>과 <실천>이 한데 묶여 있어야, 순간 즉시 행하게 된다.
20. <생각>은 앞에 가고 <실천>은 뒤에 가면, <생각>은 행했는데 <몸>이 늦어서 결국 못 행하고 만다.
21. <신같이 빨리 움직이는 생각>과 <몸>이 같이 움직여야 ‘초인’이 된다.
22. 춤추고 운동하는 사람은 <생각>과 <몸>이 동시에 움직인다. 생활할 때도 그리해라.
23. <생각>을 따라 <몸>이 즉시 행해야 행해진다.
24. <생각>이 행한 다음에 <몸>이 따로 행하면, 행하지 못한다.
25. 새벽에 잠에서 깰 때 <생각>이 일어나면, 순간 <몸>도 따라서 일어나야 된다. 그때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26. 만사의 모든 일도 <생각>과 <몸>이 동시에 움직여야 순간 행해진다.
27. <생각>과 <몸>이 따로 놀면 실패한다.
28. <생각>은 ‘엔진’과 같고, <몸>은 ‘몸체’와 같다. 엔진과 몸체가 따로 놀면 움직이지 않듯이, <생각>과 <몸>이 따로 놀면 되는 것이 없다. <생각>과 동시에 <실천>해야 된다.
29. 영계에서 영들은 <생각>과 <영체>가 하나 되어 동시에 행한다. 고로 영계는 ‘생각 실상 세계, 생각 실천 세계’다.
30. 육계의 육들은 <생각> 따로 <몸> 따로 행하니, 생각만 하고 행하지 못한다.
31. <생각>은 ‘남자’와 같고, <몸>은 ‘여자’와 같다. <생각> 따로 <몸> 따로 놀면, 평생 사랑할 수 없다.
32. <생각>은 ‘성자’이며, <몸>은 ‘자기 자신’이다. <생각> 따로 <몸> 따로 놀면, 성자의 뜻대로 행할 수 없다. 생각과 몸이 동시에 행하듯, ‘늘 성자와 함께 실천’이다.
33. <생각>과 <몸>은 항상 붙어서 행해야 된다.
34. 집에서도 밖에서도 매사에 <생각>과 <몸>이 하나로 붙어 있는 자는 ‘자기 할 일’을 순간 즉시 빠르게 행한다.
35. 글을 쓸 때 ‘손’은 <생각>과 같고, ‘펜’은 <몸>과 같다. 손과 펜이 따로 놀면, ‘글씨 한 자’를 못 쓴다. 이와 같이 <생각>과 <몸>이 따로 놀면,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한다.
36. <생각>은 ‘핵’이며 ‘주인’이다. <몸>은 ‘대상’이다.
37.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섬겨라.” 했다. ‘마음’은 <자기 생각>

이며,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목숨’은 <자기 육체>다. 곧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육체>를 하나로 묶고 일체 시켜서 행하라 함이다.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38.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다.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네 마음과 사고와 생각>을 100% 버려라. 비워라. <자기 주관>을 없애라. 자기 주관으로 행할까 하노라.” 함이다. 거룩한 곳에서 ‘네 발의 신’을 벗듯,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네 뇌와 마음과 생각’에서 버려라 함이다.

39. 하나님은 <생각>을 감찰하신다. <자기 생각>이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싹 비워야 된다.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다.

40. 루시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지 못해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쫓겨나 루시퍼가 되었다. 곧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 ‘에덴’에서 또 <신발>, 곧 <자기 주관과 사고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를 꾀다가 쫓겨나 ‘영원한 지옥 판정’을 받고, 영원히 저주로 끝나고 말았다.

41. 큰 자 앞에 가면 <자기 사고와 주관>을 비우고 대하는 것이다. 왕 앞에서 <자기 주관>을 나타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42. 하나님은 <사상>을 보신다. <사고>를 보신다. <생각>을 보신다. 인생은 <자기 사상, 자기 사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43. 구원받을 자, 휴거될 자도 <사상, 사고, 생각>을 보고 택한다.

44. <사고와 생각>이 나쁜 자는 <몸>도 같이 나쁜 자 취급을 받는다.

45.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정신, 생각, 사고, 사상, 주관>을 보시고, 망가졌으면 폐차하듯 하신다.

46. <섭리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정한 곳’으로서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의 신>을 벗어라.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의 신>을 벗은 자만 휴거된다.

47. 모세도 ‘자기 발의 신’을 벗고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받았다. 그리함으로 ‘자기’도 구하고, ‘자기 백성들’도 1차 애굽에서 신광야로 구해 났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악평의 신>을 벗지 못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상세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48.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한 자’다. 고로 ‘신발’과 같은 <자기 주관, 자기 사고>를 버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고 휴거된다.

49. <월명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고로 <자기 주관과 자기 사고>를 버리고 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비밀들을 말씀하신다.

50.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주관의 신>을 벗지 못해서 ‘사탄, 악신’이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행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51. 다윗은 <자기 주관의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해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쓰임 받았다.

52. 가인들은 거룩한 곳에서 <자기 주관의 신>을 벗지 않고 살다가 루시퍼처럼 거룩한 곳에서 영원한 저주의 세계로 쫓겨났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역사에서도 <자기 주관, 자기 사고, 자기 생각의 신>을 벗지 않는 자들은 밖으로 쫓겨나고, 또한 성자께 가까이 가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다.

53. 성자 앞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을 때는 두 짝 다 벗듯이, 자기 주관과 행실을 다 버려라. <오른발의 신>은 '자기 생각과 주관'이고, <왼발의 신>은 '자기 주관의 모든 행실'이다. 매일 '자기 발의 신', 곧 '자기 생각과 주관과 행실'을 벗어라.

54.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거룩한 땅에서 살려거든, '네 발의 신'을 벗고, '삼위의 신발'을 신고 다녀라.

55.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자기 몸의 옷'을 벗어라. '자기 행실'을 벗어라 함이다. '자기 행실'을 벗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행해라.

56. 자기가 온갖 더러운 것을 밟은 것이 '신발'이다. 이와 같이 자기가 온갖 것을 겪은 것이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버려라. <인간의 생각과 주관>은 '인간의 차원과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57. <순간의 기회>는 '순간의 생각과 실천'에서 온다.

58. <생각>을 따라서 <몸>이 동시에 즉시 행해야 '자기 희망'도 이루고, '휴거'도 이룬다.

59. <생각>은 '성자'이며, <자기>는 '몸'이다. 자기가 성자를 따라서 즉시 행해야 '자기 희망'도 이루고, '휴거'도 이룬다.

60. <성자의 생각>을 받아서 즉시 행함으로 '순간의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주관과 생각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

61. <자기 주관과 생각의 신발>을 벗어야 '성자의 생각'이 들어오고, '잊어버린 것'이 생각난다.

62.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빨리 버릴수록 '성자의 생각'이 임하여 빨리 휴거된다.

63. '자기 때'에 <자기 주관과 생각의 신발>을 못 벗고 살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

64. 성자 앞에서 '자기 잔폐의 신발'을 모두 벗어 버려라. 빨리 버릴수록 휴거된다.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 침몰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빨리 구조해야 된다. 그래야 구할 수 있다.

2. 생명은 빨리 구해야 된다. 시간이 늦으면, 못 구한다.

3. 생명을 구하는 시간은 일순간이다. 그때 구해야 된다.

4. 생명을 구하는 자는 신속하고 빨라야 구할 수 있다.

5. 신속하게 즉시 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를 보게 된다. 제때 위험을 무릅쓰고 꺼내야 구할 수 있다.

6. 지도자는 생명을 자기 목숨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구해라.

7. 지도자는 환난 때 위급한 상황을 만난 생명들을 신속히 구해야 된다.

8.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연습을 수시로 해야 된다. 그래야 환난을 당해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해 봤기에 즉시 그대로 하여 살게 된다.
9. <생각>이 느리면, 살 자도 죽는다.
10. <생각과 판단>을 늦게 하면, 그만큼 생명을 구할 시간이 없어진다.
11. 지도자는 유능하지 못하면 배우고 해라. 안 그러면 '자기 생명'도 죽이고, '타인의 생명'도 죽이게 된다.
12. 모든 자를 다 구하고 자기도 구할 수 있는 시간에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면, 자기가 살았어도 그 대가와 고통을 받게 된다.
13. 욕적으로 생각하고 구하면, 생명을 못 구한다.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생각해야 구한다.
14. 지도자는 자기가 지도하다가 생명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그때 안일하게 생각 말고 '즉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15. 생명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설마' 하고 주저하고 있다가는 생명을 뺏긴다. 즉시 날면서 행해야 된다.
16.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육신' 쓰시고 생명을 구하신다. 고로 '그 육의 몸'이 되려면, <시간>을 보고 <거리>를 재 가면서 빠르게 행해야 된다.
17.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 있는 시간은 '순간'이다. 물속에 버려두면, 그 찬 곳에서 얼마나 버티겠느냐.
18. 잠을 깬 자가 잠자는 자를 깨워 주듯, '시대 구원의 잠을 깬 자'가 책임지고 '시대의 잠자는 자'들을 깨워 줘라.
19. 교역자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모든 생명들을 매일 살피야 된다. 교역자가 교인보다 늦게 알면 되겠느냐.
20. 관리하는 자들은 생명에게 이상이 있으면, 즉시 지도자들과 같이 생명을 구출해야 된다.
21. '모르는 자'는 생명이 옆에서 죽어 가도 모른다. '아는 자'가 책임자다.
22. 성자는 '아는 자'에게 <책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를 통해 행하신다.
23. '휴거된 자들'이 휴거되지 않은 자들을 휴거시키는 데 지도자가 되어 도움을 준다.
24. 지금은 '느린 자'는 지도자를 못 한다. 시대가 그러하니, 지금은 '빠른 자'만 쓴다.
25. 늦게 행해서는 못 할 이때다.
26. '빠른 자'만 이 시대를 가르쳐 주고, 생명들을 구하여 이끌어 갈 수 있다.
27. '느린 자'는 달려도 못 가는 시대다.
28. '빠른 자'만 갈 수 있는 시대다.
29.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주와 일체 되어 하는 자는 '비행기로 가는 자'다. 열심히 하는 자는 '차로 가는 자'다. 보통으로 하는 자는 '자전거로 가는 자'다. 그저 따라가는 자는 '걸어가는 자'다.

30. ‘느린 자’는 <산 사람>도 떠나려 보내고, <죽은 시체>도 떠나려 보낸다.
31. 시험의 물에 빠진 자를 보고 남을 구원하라고 사명을 맡기니, 구원이 되겠느냐. (너는 시험의 물에 빠져 있느냐. 그 상태로 남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32. <소통>이 늦고 <보고>가 늦으면, 그만큼 ‘생명’을 구하기 어렵다.
33. 구원자라도 ‘때’가 늦어 버리면, 생명을 못 구한다.
34. ‘자기 힘’으로 생명을 못 구하면, ‘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말해 주어 빨리 구하는 역할을 하게 해 주어라.
35.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자기>도 구하고, <형제들>도 구한다.
36. 새벽에도 늦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시는 시간을 뺏긴다.
37. 늦으면, 누가 방해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아무리 속력을 내도, 목숨 걸고 해도 안 되는 것이다.
38. 열 일 제치고 먼저 할 일을 해 보아라. 그러면 먼저 한 일로 인해 두 번째 일, 세 번째 일은 손해가 안 간다.
39. 핵심을 먼저 해라.

<2014년 7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40. 서두르고 재촉하여 행한 자만 ‘성자’를 따라간다.
41. 시간이 없다. 이제 보통으로 가서는 못 간다. 주와 일체 되고 성자와 일체 되어 갈 시간만 남았다.
42. 지도자만 기다릴 때가 아니다.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 행할 때다.
43. 지도자도 위급한 상황이라 자기 생명 때문에 떠난 때다.
44. ‘성자’도 떠나가고, ‘주’도 떠나간다. 저마다 지도자가 되어 자기 생명을 살려야 할 위급한 때다.
45. 배가 기울었어도 갑판에 나오지 않고, 자기를 구해 줄 자만 기다리느냐. 시간 있을 때는 앉아 있다가, 구할 시간이 넘어간 후에 뛰느냐. 그때는 날아도 안 된다.
46. 네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뛰고 달려야 될 시대다. 누가 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아라.
47. <세월>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기>가 뛰어야 해결된다.
48. 구할 자는 떠났는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다. 자기가 뛰어나와 자기를 구할 때다.
49. 갈수록 세상 바다의 파도가 높아져서 흉악하다. 이에 시대의 배가 기울고 있다. 어서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부르는 데서 끝내지 말고, 즉시 거기서 뛰쳐나와라. 그러면 구할 자가 끌어낸다.
50. 이 시대는 죽은 자들이 살아 오길 기다리는 막연한 시대다.
51. 시대의 징조다. 지금부터 모두 기도하고 행하여, 각자 ‘자기 죽음’을 벗어나라.

52.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여덟 명이 죽었다. 그 튼튼한 망대가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하여 죽은 것이다.
53. 생각지도 않는 데서 ‘사고’가 일어난다. 모두 생각해라.
54. 세월호가 매일 다니던 곳에서 그리 침몰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매일 문제가 없었어도 평소에 점검하지 않고,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니, 그 날에 참사를 당하게 된다.
55. 환난을 당한 후에 구하려 하지 말고, 미리 대처하고 가르쳐라. 그러면 구하기 쉽다.
56. 사고 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을 것이다.
57. 모두 이 시대를 미리 알고 행하도록, 성자에게 말씀을 받아 미리 외쳐 주고 알려 주었다.
58. 예비하고 행한 자는 ‘다른 배’를 탄다. 그 배는 <새 역사 성자 배>다.
59. 사고가 나기 전에 <새 역사 성자 배>로 갈아타기다.
60. 사고가 나기 전에 <새 역사 성자 배>로 뛰어내리기다.
61. 안일한 자는 죽음의 세상 바다로 들어간다.
62. 매일 자기 생명을 위해 기도해라.
63. 의인이 없으면, 하늘 운이 돌아가 화가 닥친다.

<2014년 7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도자는 어떤 일을 당하기 전에 항상 그 일을 당한다 생각하고, 일을 당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해 놓고, 그 일을 당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지휘해야 된다.
2. 일을 당하면, 지도자는 빨리 상황 파악을 하고 전체가 움직이도록 지시해 줘야 된다.
3.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더라도, 지도자는 빨리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극적인 할 일’을 한 것이다.
4.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은 각자가 하기에, 지도자가 상황 판단을 빨리하여 지시해 주기만 해도 책임은 한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장이 지시를 안 했기에 고스란히 대형 참사를 당한 것이다.
5. 지도자는 핵심을 판단하고 방향을 가르쳐 주며 명령하면,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를 안 하면, 막상 일을 당했을 때 판단을 못 하게 된다. 항상 평소에 준비하기다.
6.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불시에 일어난 일이라서 지도자 본인이 처리를 못 할 때는 다음 지도자를 시켜서 해야 된다.
7. ‘사고가 안 일어나겠지?’ 생각하고, 사고가 났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생각하고, ‘설마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까?’ 생각하니, 즉시 대처하지 못하여 큰 사고가 일어난다.
8. 크니까 ‘튼튼하다.’ 생각하지 말고, ‘위험한 지역을 지나간다. 위험한 시대를 지나간다.’ 늘 생각해라.

9. 유능한 자가 없으니 배가 뒤집혀 참사를 당하듯, 교회도 유능한 자가 지도하지 않으면 사고 난다.
10. 배가 크니, 바람을 더 많이 탄다. 잘 따지고, 계산을 잘해라.
11. 사고 전에는 ‘적신호’가 온다. ‘느낌’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 ‘예감’이 온다. ‘징조’가 온다. 그때!! 살피고, 긴장하고, 초비상을 선포하고, 전체에게 전달하여 미리 행하기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체에게 미리 지시하지 않고, 지도자에게만 전달하신다. 나머지는 지도자가 깨닫고, 전체에게 말해야 된다.
13. 극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생과 사가 좌지우지되고 있을 때, 지도자가 정확히 깨닫고 한마디만 했어도 모두 ‘죽음’을 피하고 ‘대형 참사’를 면했을 것이다.
14. 지도자가 누구에게 일을 시켰는데 몸으로 같이 못 할 때는 ‘기도’해 주고, ‘편지나 전화’로 이야기해 주고, ‘마음과 생각’으로 코치해 주면서 일체 되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 ‘영감’이 오고, ‘직감’이 오고, ‘지시할 것’이 생각난다.
15. 계시자들을 통해 성자가 계시해 주시는 계시를 깊이 읽어라. 계시를 그냥 보고 넘긴다고 성자가 책망하신다. 교역자가 먼저 깊이 읽고, 교인들도 모두 다 읽게 하여라.
16. <성자의 계시>를 소홀히 여기고 읽고도 행하지 않으면, 계시가 끊어진다. 계시가 끊어지는 만큼 손해다.
17. 계시받은 자를 보고 의식하여 <성자 계시>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계시를 주신 성자를 생각하고 몇 번이고 읽어라. 모르면, 할 자도 못 한다.
18.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의 문, 성자와 분체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 났다. 고로 기도하고 물어라. 그러면 성자도 선생도 옆에 있으니 말씀하신다.
19. 지도자는 섬세해야 된다. 자상해야 된다.
20.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열 번을 말해도 모른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알아들었는지 물어보면서 말해 줘라. 그리고 알아듣고 행하는지, 또 확인해 보아라.
21. 지도자들은 생명들이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휴거>를 이루는 각자 상태는 어떠한지, 물어보고 파악해라.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된다.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지도해 줘야 된다. 그러나 가장 먼저 지도자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가 걱정이다.
22. 생명들을 세상 바다에 내보내면 오리같이 나름대로 다스리며 살아가니, 처박혀 있게 하면서 ‘말’로만 가르치지 말아라. 개인을 가르치고 실습시켜라. 본인이 해 봐야 경험이 생겨서 자신 있게 산다.
23. 생명을 급히 살려야 될 <황금 시간>에 ‘설마, 설마, 설마’만 하면, 다 죽는다.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상황 파악을 하고 피하면 산다. ‘지도자의 지휘’가 문제다. 그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다.
24. 지도자들은 늘 ‘자기’를 보고 깨달아라. 그동안 자기가 생명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깨달아라.
25. ‘제때’ 행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한다.

26. ‘제때’ 사고 신호가 왔는데도 ‘즉시’ 행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일어난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고, <인생 삶>도 그러하다.
27. <종교>는 사업을 하면, ‘사업체’로 돈이 다 투자되어 ‘생명을 살리는 데’는 투자하지 못한다. 결국 당세에 육적으로 빠진 어떤 종교같이 ‘영혼 구원’을 제대로 못 시키고 망하고, ‘사업’까지 망한다.
28. 섭리사도 사업을 하면, 돈이 그쪽으로 투자되어 ‘생명을 구원하는 데’는 못 쓴다. 그러면 ‘구원역사’가 망한다. 그래서 ‘사업’은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만 신경 쓰며 ‘구원 사업’만 한 것이다. 모두의 편의를 위해 그때그때 필요한 몇 가지만 사고팔게 했다.
29. 이 시대에 세상의 종교들을 보아라. ‘사업’에 투자하는 종교들은 번창하여 건물도 많고, 교회도 크게 짓는다. 그러나 그 영혼들은 결국 흑암에 가 있다. 지도자가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주지 못하고, 그 ‘사업’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30. 하나님이 보낸 ‘성자’를 만나고, ‘사명자’를 만나 온전한 길을 인도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아라! 그리고 배가 침몰되듯 하는 이 시대, 이때 더욱 열심을 내라.
31. ‘비진리’를 가르치며 자기를 ‘구원자’라 하는 자들은 많은 자들을 ‘비진리’ 속에 묶어 놓고 ‘영혼의 참사’를 당하게 했다.
32. 오직 전능하신 성자만이 ‘하나님 뜻의 코스, 생명길’로 생명들을 끌고 가신다.
33. 안쓰러워도 100% 하자고 했다. 섭리역사는 ‘이성 관계’는 물론, 청춘에는 생각만 해도 불같이 폭발하는 ‘자위행위’ 까지도 못 하게 하면서, 사망의 계곡을 벗어나 생명길로 나왔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이해 안 되게 항해해 왔다. <휴거 때>만 아니라면, <하늘 신부>가 아니라면, 아마도 저 기성같이 그냥 뉘엿을 것이다.
34.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도 제대로 대해 주신다.
35.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생하고, 인간의 한계 법칙에 벗어나도 고쳐라. 안 고치고 살면, 저 배처럼 세상 바다에 침몰하여 생명을 잃게 된다.
36. 신부만큼은 신부로서 깨끗이 단장해야 된다. 저 구시대는 형제들이니 다르다.
37. 신랑이 없는 자들은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든, 이성 타락을 하든, 자위행위를 하여 힘없어 쓰러지든, 몸에 문신을 새기든, 외롭고 쓸쓸해서 술 담배를 하든,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기다렸던 신랑과 같이 사는 자들은 자위도, 문신도, 술 담배도, 세상 사랑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몸이 아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산 ‘신랑의 몸’이다.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가는 것’도 아시고 ‘오는 것’도 아신다. <모든 것의 결과>를 다 아신다.
2. 누구나 <결과>와 <미래>가 궁금한 것이다.
3. <결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은밀한 비밀이다.
4.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는 대강이라도 알지만, <미래>는 모른다.
5. <결과>는 ‘답’이다. 고로 모두 <결과>를 알기 원한다.
6. 인생은 겪어 봐야 알고, 살아 봐야 안다. 고로 <결과>와 <미래>도 겪어 보고 살아 봐야 안다.

7. 어떤 일은 <결과>를 알고 살아야 희망에 차서 살지만, 어떤 일은 <결과>를 모르고 살아야 희망에 차서 살게 된다.
8. <과거>에서 <현재>가 나오고, <현재>에서 <미래의 결과>가 나온다.
9.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하고 섬기며 살면, 누구나 <결과>가 좋게 되어 욕도 잘되고 영도 잘되어 영이 천국까지 간다.
10. <현재>에 '욕'만 위해 사는 자의 <결과>는 욕으로 끝난다. 그러나 <현재>에 '영'을 위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면, '영'이 천국을 상속받는 길로 가니 <결과>가 잘되고 형통한다.
11. '자기 욕신이 현재에 하는 행위'대로 <결과>가 좌우된다.
12. '현재의 자기 삶'이 '미래의 결과의 씨'를 뿌리고 사는 것이다. '현재의 삶'이 곧 '미래의 결과'다.
13. <시작>과 <끝>이다.
14. <시작>을 따라서 <끝>이 좌우된다. '굴'로 시작하면 '굴'로 끝나고, '길'로 시작하면 '길'로 끝난다. 인생의 운명도 그러하다.
15. <시작>은 <결과>다.
16. 시작한 대로 결과를 얻는다. '감나무 묘목'으로 시작하면, 결과물로 '감 열매'를 얻는다 함이다.
17. <시작>과 <현재의 자기 행실>로 인해 <결과>가 형성된다.
18. 좋은 날을 맞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얻으려면 <현재>에 잘해라.
19. '현재 자기 삶'이 '씨'가 되어 장래에 거둬들이게 된다.
20. '현재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반쯤 가르쳐 주고,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 안 가르쳐 준다.
21. <미래의 결과>가 궁금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현재의 네 행위와 삶>이 문제다. <현재 네 행위와 삶>으로 인해 <미래의 결과>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22. '미래에 잘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미래의 결과>가 궁금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하며 살면 잘되고, 자기 주관대로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정한 이치'이며 '하늘과 땅의 법'이다.
23. 새벽에 꿈을 꾸고 있었는데, 기도하러 일어날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나 꿈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궁금해서 계속 잤다. 결국 안 일어나고 자는 대로 '안 좋은 꿈'을 꿔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결국 '나쁜 차'로 변했다. 차도는 좁고 나빴다. 그러더니 내가 차를 타고 가던 좁은 길로 열차가 들어왔고, 그 앞에 있던 나는 열차를 피하려고, 좁은 차를 타고서 철길 옆에 있는 비좁은 흙바닥 길로 간신히 빠져나오다가 잠에서 깼다. <꿈>은 <육신 행위의 결국>을 보여 준다. 모든 인생들의 삶도 그러하다. <자기 미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계속 '욕'만 위해 살다가는 그 <결과>를 안 봐도 뻔하다. <현실>에서 안 좋게 살면 <미래>에 가 보나 마나다. <현실>에서 고생해도 좋게 만들면서 살아야 그 대가로 <미래>에 좋게 살게 된다.
24. '행함의 결과'다.

1. <이 세상의 일들>은 모두 알고 보면 무섭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확인해 보면, 잘못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 무섭다. 확인해라.
2. 육지에서 차를 타고 가든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든지 무섭다. 확인해라. 50세, 60세, 70세 넘어서까지 살 사람인데, 사고 나면 그 날 생이 끝난다.
3. 한 번 죽으면, 하나님도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살게 하지 못하신다. 인생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의 법>이기 때문이다.
4. 생명을 귀히 여기고, 늘 오갈 때 확인하고 극히 조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생명의 주와 일체 되어 살아가라.
5. 사람이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달동네에서 고생만 하더라도 살아 있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세상의 재벌이나, 세력가나, 영웅 열사보다 낫다.
6. '살아 있는 것'이 그리도 크다.
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땅'에서 <마음 천국>이고, 살다 보면 <육신 환경 천국>도 이루게 된다.
8. '산 파리'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9. '살아서 생명을 가진 것'이 그리도 크다.
10. '적'도 살았을 때 적이고, '원수'도 살았을 때 원수다.
11. '적'이고 '원수'고 죽으면 끝난다.
12. <육의 생명>은 '메시아'나 '선지자'나 '그 어떤 큰 인물'이라도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13. <영이 생명권에서 산 자의 가치>는 '천하를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크다.
14. <영이 생명권에서 산 자의 가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다가 영이 사망으로 간 영웅 열사, 명예자, 세력가, 왕들 수십억 명보다 훨씬 더 크다. 아예 비교가 안 된다.
15.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는 자, 한 사람의 가치>는 <구원받고 휴거되지 못하여 사망으로 가는 자 100억 명>보다 더 크다. 고로 '한 명의 생명'이 천국에 오면, 천국에서는 아주 큰 '환영 잔치'가 열린다.
16. '온전한 자 한 명'이 '온전하지 않은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크다.
17.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
18. 온전한 자가 누구냐?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된 자다.
19.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체로 온전히 만든 자'를 찾아 그 영이 <천국 황금성>에 오면, <천국>을 만든 보람과 기쁨을 누리시고, <인간>과 <지구>를 창조하신 보람과 기쁨을 누리신다.
20. <온전히 구원받고 휴거된 자,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세상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크다.

21. ‘몇 명이 구원받고 휴거되느냐’보다, ‘온전하게 구원받고 휴거되느냐’가 귀하다.
22. ‘온전한 자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23.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사랑의 영광을 받으신다.
24. 누가 하나님이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할 ‘온전한 자, 한 사람’이나.
25. 누가 천하를 다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온전한 자, 한 사람’이나.
26. 누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영원히 받으면서 삼위의 영광과 기쁨이 될 ‘온전한 자, 한 사람’이나.
27. 성자는 떠나시기 전에 지금, ‘온전한 자’를 찾고 계신다.

<2014년 7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28. 세상만사 모든 것이 알고 보면, 두렵고 무섭다.
29. <잠> 때문에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30. <술, 담배>를 못 끊어서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셀 수 없다.
31.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무섭다. 그것 때문에 사망길로 가는 자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32. <사랑>이 좋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생명길로 못 가고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최고로 많다.
33. <명예, 권세, 세상 부귀영화, 물질>도 무섭다. 이것들로 인해 생명길로 가는 자보다 사망길로 가는 자가 비교도 안 되게 많기 때문이다.
34. <종교>도 무섭다. 종교를 잘못 택하여 ‘우상 종교’와 ‘이단 종교’를 믿고 천국 생명길로 못 가고, 죽도록 의롭게 선 하게 살면서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 많다. 이는 마치 시장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사야 하는데, 사기꾼을 만나서 ‘잡나무 묘목’을 사다 열심히 퇴비하고 땀 흘려 가꾼 자와 같다. ‘잡나무 묘목’을 열심히 가꾸며 퇴비한다고 해서 ‘사과 열매’가 열리겠느냐. ‘우상 종교’나 ‘이단 종교’를 택하여 의롭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겠느냐.
35. 세상은 알고 보면, 모두 무섭다.
36.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안 무섭다.
37. 하나님과 성자가 보내어 <인생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만 안 무섭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인도 하는 대로 가면, 오직 ‘진실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100% 천국 생명길로 간다.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우선권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인생 ‘육신만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희망이 끝난다. 그 ‘영혼’은 ‘영원한 삶의 희망’이 끊어진다.
39.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이름만 알고 그럭저럭 믿으면서 ‘구원받겠지.’ 하지 말아라.
40. <육신>이 죽은 후에 그제야 <영혼>이 어디 갔는지 확인하지 말고, <육신>이 살아 있을 때 100% 자기 구원을 확인하고, 믿고 가라.

41. 육신이 살았을 때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확인해라. 이 세상에서 확인해야 된다. 온전히 확인된 자만 구원받은 것이다. 고로 그 영혼이 '영생길, 천국길, 낙원길'로 가게 된다.
42.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확인받은 자는 마치 운동경기에서 이긴 자가 녹화된 경기를 다시 보는 것과 같아서 "100% 이겼다." 하고 마음이 놓인다.
43. 지금껏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 영>이 생령길로 가는지, 사망길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느냐.
44.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며칠이면 확인한다. 무책임하게 살지 말아라. 그로 인해 '무지의 화'가 자기에게 영원토록 물려온다.
45.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휴거됐는지 <꿈>에 '자기 혼'으로 확인하고, <생시>에 '자기 육의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확인해라.
4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되, '진짜 제대로 알고 믿어야' 진짜 영생길을 간다.
47. '보통으로' 믿고 행하거나, '제대로 모르고' 믿고 행하면, 그 행위대로 그 단계로 구원이 결정된다.
48. 길을 닦든지, 집을 짓든지, 옷을 만들든지, 글을 배우든지, 언어를 배우든지, 만사의 하나하나를 제대로 모르고 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모르고 보통으로 알고 믿고 사는 자들도 '그 결과'가 그같이 된다.
49. 가령 한 목적지를 두고 가는 자가 길을 제대로 모르고 보통으로 간다면, 목적지까지 가겠느냐. 못 간다. 중간까지 가든지, 중간에서 조금 더 가든지 한다.
50. 길을 제대로 알고 전심을 다해서 완전히 가야 목적지까지 간다.
51. <목적>은 '목적지'까지 가야 이루어진다.
52. 구원도 '온전히 받은 자'만 구원받은 것이다.
53. '보통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직 '구원 미결 상태'다. '미결 상태'는 <구원 확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54. 가령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통으로 사랑했다 하자. 100%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보통으로 사랑하니 '사랑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끝나게 된다.
55. <구원>도 <휴거>도 그러하다. '온전한 자'만 구원받고 휴거된다.
56. 영계에 가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의 실체'는 전혀 다르다.
57. <구원>도 <휴거>도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장담하지 말아라. '자기 행실'로 지금 <구원>과 <휴거>를 확인해라.
58. 누구를 믿고 사는가, 어떤 진리를 믿고 사는가, 어느 정도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마치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듯 완전히 일체 되어 살고 있는가, 죄를 회개하여 사함 받았는가 확인해라.
59. 세상만사 모든 일들을 확인하면 알듯이, 자기 육도 혼도 영도 구원받고 휴거됐는지 확인하면 확실히 알게 된다.
60. <자기 구원과 휴거>도 확인하고, <그 어떤 것>도 확인하고 기뻐해야 된다. 제대로 알고, 실제로 믿고 희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확인된 것만 확실하다.

61. <천국>은 확인하지 않아도 100% 믿어도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100% 믿어도 된다.

62. ‘태양’이 있듯, ‘지구’가 있듯, ‘달’이 있듯, ‘별들’이 있듯, ‘바다’가 있듯, ‘땅’이 있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확실히 존재하신다. 매일 자기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매일 역사하신다.

63. <미완성된 인생들>은 다 확인해야 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확인해야 된다.

64. <자기 구원과 휴거>도 꼭 확인해야 된다. 막연히 “구원받았겠지. 휴거됐겠지.” 하지 말아라. ‘자기 행위’를 보고 확인해라.

65. 저마다 <확인할 것들>을 꼭 확인해라.

66.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때가 됐으니, 지금쯤 과일이 이만큼 컸겠지.’ 짐작만 하지 말고, 과수원에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러면 확실하다. <생각>과 <실제>가 다른 것이 너무 많다.

67. 어떤 사람을 보기도 전에 추측하면, 실제와는 다르다.

68. <구원>과 <휴거>도 ‘추측’과 ‘실제’는 다르다.

69. <세상만사 모든 것>을 누가 말하는 것만 믿고 영성하게 확인하지 말고, 본인이 100% 확인해 봐야 된다.

70. ‘자기 추측과 예상’은 ‘실제’와 다르다.

71. ‘자기 추측’과 ‘영계의 실상’은 다르다.

72.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예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럴 것이다.’ 하는 자가 지구 세상을 덮고 있다.

73. 사람들은 항상 <앞날>을 좋게 생각하고 사는 심리가 있다.

74. <자기 앞날>을 나쁘게 예상하면 안 좋으니, <앞날>을 늘 좋게 추측하고 예상하며 산다. 그러다가 <앞날>에 가서 보면 거의 좋지 않다.

75. ‘자기 추측’과 ‘미래의 현실’은 다르듯, ‘육의 세계의 생각’과 ‘영의 세계의 실상’은 다르다. 확인한 것만 똑같다.

76. <미래>도 ‘현실’에서 미리 확인해야 된다.

77. ‘현실의 삶’은 <미래>를 낳는다.

78. ‘현실의 삶’을 통해서 <미래>가 100% 확인된다.

79. ‘현실의 자기 생각과 행위’의 대가로 <미래>가 온다.

80. <현실>에서 ‘자기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매일 믿고 사랑하며 사는지 보고, <미래>의 ‘자기 영혼의 삶’을 예상하고 확인해 보아라.

81. ‘보낸 자’를 통해서도 <미래>를 확인해 보아라. ‘자기 혼’을 통해서도 <미래>를 예상하고 확인해 보아라.

82. <과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잘 믿고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신앙이 죽은 자들’이 많았다. 고로 <과거>에 잘 믿었어도 <매일> 100% 잘 믿어야 된다. <과거>에 잘 믿었어도 가다가 중단하면, 과거에 잘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83. 육계에서 <육>을 보다가 영계에서 <혼과 영>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보통으로 믿고 행하는 자’는 그 마음과 행실 그대로 <영>이 형체를 이루고 있고, 그 마음과 행실 그대로 <혼>이 그 급에서 살고 있음을 여실히 보게 된다.

84. ‘육’만 보고서는 잘 모른다. ‘혼’만 봐도 자기 상태를 안다.

85.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현실에 예상하고 추측한 것’과 ‘앞날에 닥친 것’은 달랐다.

86.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추측한 것’과 ‘미래 영의 세계의 실상’은 다르니, 반드시 차원 높여서 확인하고, 진실로 배워서 알고, 속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

87. ‘자기 추측’과 ‘실제’는 다르다. ‘자기 추측’은 ‘실제’보다 이상적일 때가 많다. 그러나 <성지 땅 월명동>은 다르다. 월명동에 안 가 본 사람을 데리고 가 보아라. <월명동>만큼은 90% 이상 실체가 ‘추측한 것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

88. 자기 자녀도, 부인도, 남편도 ‘자기 추측’과는 다르니 확인해 보아라. 확인하면 다르다.

89. 만사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여, 속지 말고 살아라.

90.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 다만 날마다 차원이 높아지고, 더 좋게 변화된다.

91.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시대가 갈수록 마치 과일나무 크듯 변화되고, 과일이 제철을 맞아 더 커지고 아름다워지듯 변화된다.

<2014년 7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예측의 능력>이 아주 약하다. 첫 번째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육이 자기 혼과 영과 멀어서 교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2.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는 뇌 차원이 높는데, <보고 듣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뇌 차원이 아주 낮다.

3. 가령 산길을 처음 가는데, “이 길은 서쪽으로 뻗었다.” 하고 예측하거나, 혹은 “이 길은 동쪽으로 뻗었다.” 하고 예측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길은 좁다, 혹은 넓다.” 하고 <예측하는 두뇌의 차원>이 낮다는 것이다.

4. 사람이 <예측의 능력>, <예측의 두뇌 차원>이 높아야 깨닫고 행하기에 빨리 발전한다.

5.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현실에 되어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분별한다.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능력과 뇌 차원>은 약하다는 것이다. 고로 발전하지 못하고 가다가 중단한다.

6.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도, 어떤 상황을 볼 때도 ‘현실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발달시켜라. 그래야 빨리 행하여 얻는다.

7. 영적인 자가 <예측의 두뇌 차원>이 높다.

8. 현실을 분석하는 자가 <예측의 두뇌 차원>이 높다.
9. <예측의 두뇌 차원>이 높은 자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땅속에 묻혀 보이지 않은 것’도 꿰뚫어 본다.
10. ‘원인’을 통해 ‘결과’를 측정하여 알게 된다.
11. ‘원인’은 ‘결과’를 제공한다.
12.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13.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성 예측’을 해라.
14. 같은 동질성은 ‘과거를 통한 예측’이다.
15. ‘확인’과 ‘분석’과 ‘분별’의 예측’이다.
16. 분별하는 자가 지혜를 받은 자다.
17. <예측>은 실재를 미리 예상하여 아는 것이다.
18. 계산하면서 예측해라. 가령 100리 길을 가는데 절반을 가는 데에 5시간이 걸렸다 하자. ‘앞으로 5시간 더 걸리겠구나.’ 예측하고 가라. 이와 같이 <인생 삶>도 계산하면서 예측하는 것이다.
19. 가령 큰 바위가 땅에 묻혔다 하자. 반쯤 봐서 그 형상을 봤으면, ‘현재 형상’을 보고 ‘나머지 형상’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
20. 평생 몸으로 가 볼 수 없는 곳도 계산하여 예측함으로써 가 보는 것이다.
21. 사람의 ‘앞날’은 ‘과거에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측하지만, 변화된 자는 ‘변화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앞날’을 예측한다.
22.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그 경지의 사명자만 알도록 인봉되어 있다. 고로 아무나 예측할 수 없다.
23. <예측의 능력>과 <예측의 차원>을 높이려면, 연구해라. 생각과 지식과 지혜의 차원을 높여라. ‘혼적, 영적 활동’을 통해서 생각과 지식과 지혜의 차원을 높이게 된다.
24. 자기 혼을 써서 ‘보이는 것’을 통해 ‘땅속’도 예측해 보아라.
25. 혼과 영으로, 또 육의 생각으로 예측한 것을 확인해 보아라.
26. <영의 세계>도 처음에는 예측하는 것이다. 배운 대로 예측해 보아라. 그다음에는 혼과 영이 가 보고, 본 것을 육에게 전해서 알게 하는 것이다.
27. ‘어제의 삶’이 그대로 간다면, ‘오늘’도 그 차원이라는 것을 거의 예측할 수 있다.
28. ‘오늘의 삶’이 ‘내일’ 연속되니, ‘오늘의 삶’을 보고 ‘내일’을 예측하게 된다. <역사>도 그러하다.
29. 10년 후에 고향에 가 보니, 예전처럼 지금도 역시 그 삶을 살고 있었다.

30. 동물들도 10년 전에 거기서 살던 대로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었다.
31. 수고하면서 고통 속에서라도 차원 높여 행한 자가 '예측 밖의 삶'을 살고 있었다.
32. '오늘의 삶'이 연속되면 '내일'도 뻔하게 그 삶을 산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발전시키면서 산다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산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3.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자기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예측을 못 하고 궁금해한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 신이라서 '앞날'을 아신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앞날'을 예측하게 해 주신다.
36. '저는 앞날에 어떻게 될까요?' 물으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내게 맡겨라. 너는 내 육이니, 네 인력으로 안 된다. 나의 계획대로다." 하셨다.
37. 사랑하는 자에게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2014년 7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혼자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다. <구원의 문, 휴거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고, '휴거'된다. 그 문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다.
2. <구원자>에게 '구원'을 구해야 된다.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이다.
3. <구원자>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밖에 못 해 준다. <구원자>는 '구원하는 책임'을 하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는 책임'을 하는 것이다.
4. <휴거 때>에는 '휴거'로 '구원'을 이룬다. 고로 <휴거 때>에는 영이 휴거돼야 구원받았다 할 수 있다.
5. <휴거>는 '영의 최고의 소망'이다.
6. <휴거>는 혼자서 이루지 못한다. 구원자와 함께 이루는 것이다.
7. 무엇이든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서 못 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야 쉽게 해진다.
8. 혼자 할 때가 어렵다. 마음 딱 먹고 몸 딱 잡고, 주께 배우면서 '주와 같이' 해야 쉽다.
9. 혼자서는 항상 혼자다. 역사를 일으키려면, 주와 함께 하여라.
10. <핵>까지 도전하기다. <핵>까지 깨닫고 알기다.
11. 이 세상에서 <구원의 핵, 휴거의 핵>이 누구냐. 그 <핵>을 깨닫고 알기다.
12. 봐도 모르면, 소경이다.
13. 살아서 못 이룬 뜻을 죽어서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육>이 없는데 어떻게 뜻을 이루겠느냐. <혼과 영>이 '육이 이를 뜻'을 이루느냐. <혼과 영>은 '혼과 영의 뜻'을 이룬다.

14. 사랑하는 자가 살아 있을 때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죽은 후에 ‘사랑’을 이루려고 하느냐. 죽으면, 끝난 것이다.
15. ‘기다리던 자’를 맞고 살면서도 왜 혼자서 살고 있느냐. ‘기다리던 자’와 <사랑>을 이루며 살아야지, <자기 생각>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16. 진행 중에 진행해야 된다.
17. ‘구원자가 살아 있을 때’ 해라.
18. 지금은 <구원자>가 살아 있어 ‘같은 육’을 가지고 같이 행하니, 쉽다. <구원자>가 죽으면 ‘영’으로 이뤄야 되니, 아주 어렵다.
19. <구원자>가 죽으면 ‘영’으로 느끼니 실감 나지 않는다.
20. <성자>는 <그 육인 구원자>를 통해 죄를 고백받으시고, 그 육의 입을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21. <당세에 할 일>은 ‘당세’에 끝내고 떠난다.
22. 구원자가 살아 있을 때가 ‘당세’다. 당세가 ‘절정기’이며 ‘휴거기’다.
23. <성자>는 ‘영’이고 <우리>는 ‘육’이니, 성자를 직접 대하고 통하기 어렵다. 그러나 <성자의 육>은 ‘육’이라서 우리와 잘 통한다. 고로 성자는 <성자의 육>, 곧 <구원자>와 우리를 일체 시켜 놓으시고, “그가 나의 육이다. 그를 통해 나와 통하자.” 하신다.
24. <성자의 육>이 죽으면, ‘그 영’과 통하면서 <성자>와도 통해야 한다. 그러니 그때는 더 어렵다.
25. <육>과 <육>이 통할 때 반응이 크게 일어나고 실감 난다.
26. <성자의 육>이 살아 있을 때 모두 완성해 버려야 된다.
27. 똑같은 뿌리에서 난 나물도 ‘봄’에 뜯으면 먹을 수 있고, 가을에 뜯으면 ‘풀’이 되고 ‘나무’가 되어서 못 먹는다.
28. ‘쫄레꽃’도 <봄>에 새순을 꺾어 껍질을 벗겨 내어 씻어 먹으면 ‘쫄레꽃 풀 향기’가 입과 코에 가득 풍기며 생기가 돌게 한다. 그런데 <여름>에 가서 먹으려고 몇 개의 순을 남겨 놓고 <여름>에 가 보면, ‘쫄레나무’가 되어 가시가 돌아 나서 먹기는커녕 손도 못 댈다.
29. <봄>에 고사리를 꺾어야지, <여름>에 가서 꺾으면 못 먹는다.
30. <휴거>도, <만사의 모든 일>도 ‘제때가 기회’다. ‘때’를 놓치고 하면, 해도 소용없다. 변질되어 있기 때문이다.
31. <휴거 때>가 지나면, 지구 세상 70억 명이 모두 휴거되려고, 발에 불이 나게 뛰고 달리고, 정수리가 벗겨지도록 열심히 뛰고 달려도 휴거되지 못한다.
32. <진리>만이 영원하고, <진리>만이 후대들에게 기업을 된다.
33.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로 인해 ‘축복’을 받는다.

34. 하나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에게 하신 말씀이 ‘그 시대 전체’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진리>다.
35. 고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인도 민족도 ‘태양이 없어 흑암과 밤만 연속되는 세상’이다.
36. 사람이 경제, 명예, 권세만 가지고 누리면 뭐하나. <이 세상의 것>은 한때 한순간 누리면 끝장이고, 한순간 누리고 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누리도 전혀 부럽지 않다.
37. 휴거되어 천국을 차지하고 ‘영’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육으로 누리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38. ‘인류 최고의 혜택’이며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펴신 목적’은 <휴거>다.
39. 성자가 오셔서 ‘신부’를 찾고 휴거시키면, 목적을 이룬 것이다.
40. <영원한 성공길>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는 길’이다.
41. 막연하고 흐릿하게 생각하면,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다 선악 간에 그 날이 닥치니, 그제야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
42. ‘성자와 구원자와 일체 된 자’는 지혜를 받고 미리 알고 깨달아 <생명길>로 간다.
43. 사탄은 ‘지옥 쪽’으로 인도하면서 끌고 간다.
44. 사탄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그 시간에는 사탄이 그 <몸>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한다.
45. 사탄이 옆에 와 있어도 상관없게 하려면, 오직 ‘자기 할 일’을 100% 해라. 그러면 ‘틈’을 안 주게 된다. 이는 사탄에게 <문>을 안 열어 준 격이 되어, 사탄이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간다.
46. 사탄에게 <문>을 안 열어 주고 ‘자기 할 일’만 하면, 사탄은 문턱 너머 문 뒤에서 졸고 자다가 사명자 코끼리에게 밟혀 허리뼈, 갈비뼈, 등뼈가 부러진다. 그리고 사명자 코끼리의 코에 잡혀 꼼짝도 못 한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지옥’으로 간다.
47. 사탄이 ‘뇌’에 들어오면, 자기는 못 보니 보는 자가 말해 주어라.

<2014년 8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맏고 끊는 것’이 생명이다.
2. 일을 하다가 때가 되면 끊고, 그때에 해야 될 다른 일을 시작해라.
3. 제때 맏지 않고 제때 끊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고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4. 제때가 제때다.
5. 맏고 끊는 삶을 생명시해라.
6. 제때 맏고 제때 끊지 않는 자는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
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맏고 끊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8. 맺고 끊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위대한 삶>을 사는 자다.
9. 사람이 생활 속에서 시간을 맺고 끊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칼같이 맺고 끊는 삶을 사는 자만이 많은 일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3배, 5배, 7배 얻는다.
10. 어떤 사람은 끝은 잘 내는데, 다음 일을 시작하는 것을 빨리하지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내는 것을 제때 못 하고 자꾸 질질 끌어 댈다.
11. 축구 경기, 배구 경기, 농구 경기를 보아라. 정확하게 시간을 맺고 끊는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라.
12. 생명도, 만물도 끝까지 키우고 기르면 작품 된다.
13.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는 사람들의 수는 소수다. 자기가 책임을 못 하여 자기 잘못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4. 억지로 시키면, 반항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15. 억지로 시키면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혼자 두면 가다가 말게 된다.
16. 자동기계를 만들듯이, 아예 말씀을 가르칠 때 아예 <자기 책임분담>에 대해 잘 가르쳐서 '자동 실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17. <책임분담>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자동적으로 스스로 한다.
18. <책임분담>을 가르쳐서 스스로 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19. 누구든지 <자기 책임>을 못 하면 '변화'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휴거'도 안 된다.
20. 휴거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책임'이 있고, '구원자의 책임'이 있고, '본인 책임'이 있다. 본인까지 책임을 다해야 <휴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21. <책임>을 생명시해라. 책임을 하라고 '성령의 불'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말씀'도 준다.
22. <자기 책임>을 하면 끝난다. 완성된다.
23. <자기 책임>을 하면, 그 차원에서 다음 차원으로 올라간다.
24. <자기 책임>을 하면, 얻을 것을 얻는다.
25. 배워서 알아야 <자기 할 일, 자기 책임>을 한다.
26. 모르는데 <책임>을 하는 자는 없다.
27. <책임>을 못 한 만큼 심판받고, <책임>을 한 만큼 축복받는다.
28. <책임>에 맛을 들이고 그에 대한 보람을 알아야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육의 눈의 불'을 밝히고 책임을 하게 된다.

29. 책임 하면 받는다.

<2014년 8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늘 언어’를 배우면, 신랑 되신 사랑하는 성자와 하루 종일 필요한 말을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도 바로 통하게 된다.
2. 오늘 ‘하늘 언어’를 배우면, 그 즉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시면 바로 알아듣는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언어’를 배우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얼마나 유익을 얻는지 아느냐. 매일 기뻐하며 희망의 천국을 누리며 매일 잔치한다.
4. 선생은 15세부터 ‘하늘 언어’를 배웠다. 그리함으로 많은 것을 얻고, 인생들을 구원했다.
5.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생각한 것을 말로 하여 의사소통을 하며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도 <말>이 귀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이 귀하다. 생명이다.
6. ‘말과 글과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말이 안 통한다. 고로 답답하다. 예수님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 내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하셨다.
7. ‘하늘의 언어 문화’가 발달되어야 한다.
8. ‘하늘 언어, 하늘 말’을 배우면, 천사와도 대화하게 된다.
9. ‘하늘 언어, 하늘 말’을 배우면, 천국에 안 가봤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대화’로 배운다.
10. ‘하늘 언어’를 못 배워서 10대에 알 것을 20대, 30대에 알게 된다. 고로 늦게 알고 행한 만큼 손해다.
11. 간구해서 즉시 쫓는데 ‘하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행하지 못하여 얻지 못했다. 이에 하나님이 안 쫓다고 빠져서 하나님을 안 믿고, 울고 슬퍼하면서 자기의 각종 고통을 받는다.
12. ‘하늘 언어’를 배우고, 자기에게, 옆 사람에게, 가정에, 민족에, 세계에, 이단 종교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악인들에게, 악평자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경제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법관들에게, 경찰들에게, 동물들에게, 예술인들에게, 세상의 여자들이나 남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며 자기를 ‘재림주, 메시아’라 하는 자들에게 세계 대통령들에게,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하려 하는 북한에, 속이는 자들에게, 사기꾼들에게, 이성으로 타락한 개인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깨끗한 의인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지구 세상 70억 명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듣고 ‘화’를 피하고 ‘복’을 받아라. 지진, 홍수, 각종 재난 등 지구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미리 가르쳐 줘도 ‘하늘 언어’를 안 배워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고통을 받기도 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개인, 민족, 세계에 각종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여 주며 말씀하신다. ‘하늘 언어’를 배운 자만 알아듣는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무엇’을 ‘글과 말’로 사용하며 말씀하실까? 가르쳐 줄 테니, 오늘부터 ‘하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면서 깊이 깨닫고 행하여 꼭 <휴거 300선>을 이루자!
15. 오늘부터 ‘하늘 언어, 하늘 말’을 배우러 가자!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잘하다가도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힘들어진다. 그럴 때는 ‘그동안 해 놓고 쌓아 놓은 것’이 있으니, 그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
2.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이 파선될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현실은 어려워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용기를 내게 되고 기쁨과 희망이 생긴다.
3. 이제 섭리사에 온 사람들은 ‘그동안 신앙을 하며 쌓아 놓은 것’이 없어도 ‘앞으로 말씀대로 행하여 얻을 것’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희망의 밭줄을 잡고 일어나면 된다.
4. 현재 전도가 안 되어 낙심해도 ‘과거에 전도해 놓은 생명’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5. 전도를 못 하여 낙심해도 ‘앞으로 전도할 생명’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긴다.
6. 현실에서 하루만 자신감을 가지고 힘 있고 담대하게 행하면, 판국이 달라진다.
7. 그래서 많이 해 봐야 된다. 많이 해 봐야 앞날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동안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 때문에 기쁨과 희망으로 산다.
8. 주를 조금만 믿으니, 의심이 생겨서 결국 못 믿게 되는 것이다. 많이 믿어야 의심이 안 가고 온전히 따른다.
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해야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이 안 가고, 말씀대로 많이 행하여 성공한다.
10. <말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해 봐야 신앙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성공한다.
11. 아는 만큼 믿어진다.
12. 100% 배워야 100% 믿어진다.
13. 사탄은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조금 행하는 자를 유혹하고 끌고 간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하는 자는 이미 사탄 주관권을 벗어났기에 사탄이 유혹하지 못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행하도록, <구원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행하도록, <섭리역사>에서 많이 알고 많이 행하도록 많이 가르쳐 주어라.
15.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 원인은 많이 안 했기 때문이다.
16. 성자를 의지하며 많이 행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되고, 휴거 안 될 자도 휴거된다.
17. 휴거가 안 된 자들은 행할 것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이다. 많이 행해야 육과 혼과 영이 표가 나게 많이 변화된다.
18. <할 일>을 두고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이 없다. 많이 해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긴다.
19. 많이 행하는 자가 성공한다.
20. <공부>를 조금만 하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다. 많이 해야 성적이 표가 나게 좋아지고, 그에 따라 표적이 일어난다.
21. <밀린 일>도 많이 해야 표가 나게 줄어들어 표적이 일어난다.

22. <운동>도 오랫동안 많이 하면 초인 체력으로 뒤바뀐다.
23. <월명동 자연성전>도 돌을 많이 쌓았기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24. <금은보석>도 많이 있어야 표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 표적이 일어난다.
25. <돈>도 많이 벌어야 표가 나고, 돈을 쓴 곳에 표적이 일어난다.
26. <집>도 <건물>도 크게 많이 지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난다.
27. <생명 관리>도 많이 해야 생명이 제대로 살아난다.
28. <전도>도 조금만 하면, 별 표가 안 나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많이 전도해야 시대 표적이 일어난다.
29. 영웅 열사든지, 세상의 어떤 권세자라도 조금 하면 표가 안 난다.
30.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많이 하면 표가 나서 표적을 일으킨다.
31.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하면 표가 나서 표적이 일어난다.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32. <죄>는 많이 지으면, 사망으로 가게 된다.
33. <죄>를 많이 지으면, 회개할 것이 많아지니 천국에 갈 자신을 잃게 된다.
34. <죄>를 많이 지은 만큼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의를 행해야 된다.
35. <죄>를 조금 지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간단히 회개하면 되니,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생긴다.
36.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조금 행하면 의심도 생기고 가능성도 없으니 자신이 없어서 더 행하지 않게 된다.
37.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해 놓고 쌓아 놓으면 의심도 없어지고 가능성도 많아지니 자신 있게 더 행하게 된다.
38. <휴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많이 행한 자들은 영도 혼도 그만큼 변화되어 있으니 자신이 생겨서 나머지도 연속적으로 행한다.
39.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면, 많은 시간이 있기에 자신 있게 행한다.
40. <할 일>을 두고 시간이 많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진다. 고로 불필요한 일을 빼고, '많은 시간'을 뺏어야 된다.
41. 많이 행하여 자기 머리에 많은 것을 쌓아 놓으면, 뇌가 팍 차 있고 정신도 강해져서 의심도 안 가고 자신 있게 행하게 된다.
42. 조금 하면, 그 일에 자신이 없고 가능성이 없으니 행하지 않게 된다.

43. 조금 한 자는 실패하고, 많이 한 자는 성공한다.
44. <휴거>를 놓고 그동안 많이 행해 놓은 자는 그만큼 변화되어 있으니, 자신을 가지고 나머지를 행하여 영을 변화시켜 휴거시킨다.
45. 어떤 일이든지 ‘육신’이 수고하며 행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46. ‘육’이 ‘자기 영’을 위해서 살면, ‘영’이 <하늘나라 형제>로 변화되어 ‘휴거의 영’으로 재창조된다.
47. ‘산의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으면 ‘집’이 재창조되듯이,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변화시키면 ‘천국의 영, 휴거의 영’으로 재창조된다.
48. ‘산’을 개간하여 계획적으로 ‘밭’으로 만들면 꼼짝없이 ‘밭’이 되고, 더 차원 높여 ‘논’으로 만들면 꼼짝없이 ‘논’이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를 만드는 대로 꼼짝없이 변화된다.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성삼위와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며 행하는 대로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49. 인간은 하나님같이 창조는 못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재창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여 영을 ‘휴거의 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
50. 매일 ‘재창조’다.
51. ‘자기 육’이 많이 행하여 ‘자기 영’을 많이 변화시켜 놓으면, 휴거되어 천국까지 갈 자신이 있다.
52. <할 일>을 두고 많이 한 자는 자신이 생긴다. 나머지만 하면 된다.
53. 게으른 자는 조금만 행하니, 안 되는 것이다.
54. 부지런하여 열심히 많이 행하니, 모든 일이 잘되는 것이다.
55. 모든 <이상세계>는 ‘많이 한 자의 것’이다.
56. 물건을 살 때도 돈을 조금 가진 자는 큰 물건을 못 산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큰 물건을 산다.
57. <새 시대>도 많이 알고 많이 행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 모르는 자는 많이 행하지 못하여 ‘주인’이 되지 못한다.
58. 성자를 많이 사랑하는 자가 ‘성자의 신부’가 된다.
59. 자기 신랑이라도 조금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뺏긴다.
60. 시대 신랑이 왔어도 조금만 사랑하는 자는 뺏긴다. 많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대상’이 된다.
61. 많이 행한 자에게 금메달이 돌아간다.
62. 축구 경기에서도 공을 많이 넣은 편이 ‘승자’가 되듯, 의를 많이 행한 자가 ‘천국의 승자’가 된다.
63. <성자와 분체와 소통>도 많이 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난다.

64.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행한 자가 ‘신앙의 성공률’이 높다.
65. 조금 행한 자는 성공률이 10~20%다. 고로 자신이 없으니, 거기서 포기한다.
66. 많이 행한 자는 성공률이 80~90%다. 고로 자신 있으니, 더 행하여 성공한다.
67. 자신이 없는 자들을 보면, 그만큼 행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성공률도 낮다.
68. 그동안 많이 행하여 많이 쌓아 놓은 자는 의심이 생겨도 ‘자기가 행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의심을 물리친다.
69. 조금 행하여 조금만 쌓아 놓은 자는 의심이 생기면 ‘해 놓은 것’이 없으니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그만둔다.
70. 땅을 팔 때 상대가 계약금을 조금 걸어 놓으면, 혹시 상황이 돌아가면 ‘안 사려나?’ 하고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가 계약금을 많이 걸어 놓으면, 혹시 상황이 돌아가도 의심을 안 한다.
71. 물도 조금 흘러가면 ‘가물어서 말라 버릴까?’ 의심한다. 많이 흘러가면 가물어도 ‘마를까?’ 의심하지 않는다.
72. <월명동 약수>를 먹을 때도 식기도 하듯, 음식에 소금 뿌리듯, 예의상 조금만 기도하고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마셔도 병이 안 낫는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올 만큼 먹어야 된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믿고 먹는 자들만 나으라고 기도해 놓았다.
73. 많이 하면, 누구에게나 표적이 따르게 된다.
74. ‘많이 하는 것’이 <답>이다.

<2014년 8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75. 지금은 <휴거 때>다. <휴거>에 대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할 때다.
76. 바다의 고기도 종류마다 잡는 계절이 있다. 농사도 ‘여름 곡식, 가을 곡식’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때는 그 농사만 짓는다. <휴거>도 그러하다. 지금이 ‘300선 휴거 때’다.
77. <휴거 때>는 ‘휴거’로만 구원을 얻는다. 고로 <휴거 때>는 ‘휴거 말씀’만 핵으로 한다.
78. <휴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행해야 ‘혼도 영’도 많이 변화되어 <300선 휴거>를 이루어 ‘최고’급 천국인 <황금성>에 가게 된다.
79. <큰일>인데, 조금 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80. 조금만 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자는 없다.
81.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많이 행한 자는 ‘영’이 변화되어 있으니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82. <성자 사랑>도 조금만 하면 표가 안 나고, 표적이 안 일어난다.
83. <100% 성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84. 어떤 일이든지 <100% 성자 사랑>으로 해야 ‘육도 혼도 영’도 표가 나게 빨리 변화되어 <휴거 300선>이 된다. 그러므로 표적을 일으킨다.

85. 돈을 많이 벌었어도 탕진하면, 돈이 조금 남는다. <휴거>도 200선까지 올랐다가 죄를 짓고 탕진하면 다시 내려오게 된다.
86. 사람이 투자하며 열심히 하다가도 얻는 것이 적으면, 가다가 중단하게 된다.
87. <휴거>를 통해 얻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영원하다. 그러니 얼마든지 시간과 몸과 수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88. <휴거>는 아무 때나 하지 않는다. 137억 년 우주와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6000년 구원역사상 없었고 성약 때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분체가 살아 있을 때 딱 한 번뿐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89. <휴거>가 실감 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많이 못 믿고, <말씀>도 많이 못 듣고 많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잘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90. 이때 휴거되면, 천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인 <신부급 천국>,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인 <황금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황금성>에서 1000년 성약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삼위와 구원자와 더불어 혼인 잔치 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황금성>에서 ‘성삼위의 사랑당이, 신부’로 살면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삼위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 또 육이 살아 있을 때 휴거를 이루니, 육이 살아 있을 때까지 ‘휴거된 영’이 땅과 하늘을 왕래하며 ‘자기 육’을 더욱 돕는다. 고로 ‘육신’은 ‘휴거된 자기 영’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의를 행하여 천국에 더욱 자기 공적을 쌓아 올리게 된다. 그로 인한 축복을 <땅>에서 ‘육’도 받고, <천국>에서 ‘영’이 더욱 받게 된다.
91. <휴거>를 위해 투자하면 영원하다.
92. <휴거>를 위해 투자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가 안 간다.
93. 자기가 ‘지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휴거를 위해 다 투자해도 전혀 손해가 안 간다. 오히려 1억만 배나 더 얻게 된다.
94. <휴거>를 위한 투자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이다.
95. <육적인 것>으로 얻으면, 100년도 못 쓴다. ‘그 값’은 너무도 작고 ‘희망’도 작다. 고로 반드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휴거>로 받아야 된다.
96.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하면서 <휴거>에 투자하여라. <자기가 행한 모든 공적>은 결국 ‘자기’에게 다 돌아간다.
97. 영계에 가서 확인해 보면, ‘휴거된 영들의 육신’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행하고 있었다.
98. 아직도 ‘휴거 100선, 200선에 머물러 있는 영들의 육신’은 <휴거>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휴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며, 조금만 행하며 살고 있었다.
99. 무엇이든지 조금 하면, 했더라도 별것 아니라서 거들떠보지 않는다.
100. 많이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너 대단하다!” 하며, 더욱 돕고 함께하며 역사해 주신다. 조금 하면, 협조하는 천사나 보내고 만다.
101. 휴거되려면, ‘휴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전도>다.
102. <생명 전도>를 안 했는데 휴거된 영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10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소원은 ‘인간 구원’이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다. 삼위의 소원을 이뤄 드려야 휴거된다.

<2014년 8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 속에 또 생각하고, 생각 위에 수십 번 수백 번씩 생각을 거듭하면서, 마치 강변의 수많은 돌들 가운데 ‘수석 작품’을 찾듯이 ‘생각의 보화’를 찾아라.
2. 생각 위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제일 좋은 생각의 보화’를 찾는 것이다.
3. 뇌세포가 늘으면, 생각도 늘는다.
4. 다이아몬드같이 좋은 것을 얻으려면,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야 된다.
5. 거기에 맞는 합당한 말씀이 거기의 보화다.
6. 각 분야마다 거기에 필요한 잠언의 말씀이다. 고로 한 잠언으로 다 대답할 수 없다.
7. 육신이 제시간에 가면, ‘자기를 잡는 자’가 없고 ‘자기와 다투는 자’도 없다. 이와 같이 새벽에도 제시간에 일어나면, 꿈에 ‘자기 혼과 다투는 자’를 만나지 않는다.
8.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인들은 우리가 <악의 주관권>에 있을 때 조건을 붙이고 싸움을 건다.
9. <자기 주관권>은 ‘자기 땅’이고 ‘자기 삶의 지역’이라서 다투고 싸울 자가 없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명의 주관권>은 삼위의 세계라서 싸우고 다툴 자가 없다.
11. 죄를 지으면, 사탄과 다투면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주관권>에서 벗어났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12. ‘다툼 조건’이 없으면, ‘다툼 것’도 없다.
13. 세상은 ‘약자’에게 가혹하다.
14. 절대자에게는 ‘절대’로 통한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해야 통한다.
15.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도 하고, 못 주기도 한다.
16. 개인이 <농사짓는 법>을 배우고 ‘농사’를 짓듯이, 신앙 세계에서도 개인이 <신앙하는 법>을 배우고 개인이 잘하여 ‘신앙 농사’를 지어야 된다.
17. 개인이 잘하라고 했더니,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나가서 개인 신앙하며 살겠다고 한다.
18. 개인이 잘하면, 청중 속에서도 잘한다.
19. 개인이 잘하면, 생명들도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

20. 개인이 잘하게 가르쳐 줘야 개인이 책임분담을 하여 혼자서도 잘하고, 청중 속에서도 잘한다.

21. 개인이 잘하면, 인생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능숙하게 살아간다.

22.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권세’와 ‘삼위일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권세’와 ‘삼위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는 권세’다. 그 권세로 ‘사탄’도 멸하고, ‘화’를 다스려 평화롭게 하고, ‘물질’도 다스리고, ‘자기 육과 혼과 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서 ‘혼과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 가게 하고, ‘육’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라.

23. 미련한 자는 ‘때’를 ‘살’로 생각하며 살듯, ‘죄’를 ‘생활’로 생각하고 산다.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깊은 잠언

1. ‘생활의 잠’을 주관해라.

2. 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생활의 잠’이다.

3. 꿈에 ‘큰 시간’은 크게 보여 주시고, ‘작은 시간’은 작게 보여 주신다.

4. 차를 만들면, 사람은 차에 타고 운전만 하면 된다. 그러면 차가 가니, 사람은 편하게 가게 된다. 이와 같이 <생각>으로 ‘이상세계의 것’을 만들어서 ‘육신’이 따라가게 하면 된다.

5. 하나님은 이 같은 원리로 지구가 가게 하셨다. 사람이 지구에서 살면, ‘밤과 낮’을 맞고 ‘계절’을 맞으며 살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만물>을 사역자로 삼고 행하신다.

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세 가지’로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첫째, ‘육’으로 살도록 <육>을 창조하셨다. 둘째, ‘혼’으로 살도록 <혼>을 창조하셨다. 셋째, ‘영’으로 살도록 <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아는 자만 ‘세 가지’로 살아간다. 모르는 자는 ‘육 하나’로만 살다가 죽는다.

7. <육신>을 가지고 ‘세 군데’에서 살게 할 수 있다. 첫째, ‘땅 위’에서 살고 둘째, ‘땅속’에서 살고 셋째, ‘공중’에서 살 수 있다. 아는 자는 ‘땅 위’에서뿐 아니라 ‘땅속’도 ‘공중’도 사용하면서 산다. 모르는 자는 ‘땅 위’에서만 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육, 혼, 영> ‘세 가지’로 살게 하셨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육>만 가지고 살지, <혼과 영>은 사용하지 못한다.

8. 바닷속을 연구해서 ‘해저 터널’을 만들고 ‘간척지’로 만들어서 쓰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세계를 사용하면서 산다.

9. 사람도 ‘육, 혼, 영’에 대해 아는 자만 <육의 세계의 삶>뿐 아니라 <혼의 세계의 삶>을 살고, <영의 세계의 삶>을 산다. ‘땅 위’는 <육의 세계의 삶>이고 ‘땅 속’은 <혼의 세계의 삶>이고, ‘공중’은 <영의 세계의 삶>이다.

10. <생각>은 ‘눈’과 같다. 볼 때만 보이듯, 생각할 때만 생각난다.

11.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잊어버린다.

12. 눈으로 볼 때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도 눈을 돌리면 일순간 잊어버리듯, 생각하고 있을 때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도 일순간에 흔적도 없이 생각이 사라져 잊어버린다. 이를 깨달아라.

13. 인간은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입>으로 먹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코>로 숨 쉬면서 자기를 존재시키며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눈, 코, 입, 귀가 ‘할 일’도 하게 하

면서 이것을 극적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여 ‘극적인 미’를 나타내게 하셨다. 곧 ‘사명’과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다. 얼마나 멋진지 자세히 보아라.

14. 하나님의 눈, 코, 입, 귀도 사람의 형상과 모양과 같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못 보니, 인간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라.

15. 매일 보아라.

16. 사람이 봐도 뇌의 차원이 낮아서 ‘생각할 것’도 ‘배울 것’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매일 <생각>으로 보라고 한 것이다. 매일 생각하며 보아라.

17. <육 세계, 혼 세계, 영 세계>를 생각하니 보였고, 하나님도 성자도 말씀하셨다.

18. 사람이 여러 가지를 눈으로 봐야 깨닫고 배울 것이 있다. 그러나 새장에 갇힌 새같이 안 보고 사니, ‘보는 것’이 없어서 ‘깨달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에 성자는 말씀하셨다. “눈으로 봐야만 보이냐. 환경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해야지.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아라. 눈을 꼭 감고 보아라.” (하셨다.)

19. 기도하며 생각하니, 물병이 보였다. 물병 안에 물이 들어 있었는데, 밑에 찌꺼기가 있어서 “구정물이네.” 하며 버렸다. <물>은 ‘마음’을 말하고, <찌꺼기>는 ‘마음속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를 말한다. 성자께서 내게 ‘섭리인들의 마음과 행실의 상태’를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에 따라 외치고 가르치게 하셨다.

20. 곧 다음 장면이 보였다. 부엌이 보였고, 큰 물통이 보였는데 그 안에 다 구정물이었다. 그 물은 그릇을 닦고, 음식을 만들 때 쓰는 물이었다. 선생은 한 바가지씩 구정물을 퍼서 하수도에 버렸다. 결국 물통을 깨끗이 했다. 선생이 기도할 때 ‘한 사건씩’ 성자에게 말하면서 대신 간구하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씩’ 퍼내는 것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21. 그리고 성자는 말씀하셨다. “이같이 ‘영’으로 보고 깨닫고 행해라. 꿈에서나 기도할 때 보면 ‘현실 상태’를 보게 되니, 확실하다. 찌꺼기가 있는 물통에는 깨끗한 물을 담아도 전체가 더러워진다. <마음>도 그러하니, 깨끗이 회개해야 된다. ‘더러운 물’로 그릇을 닦고 음식을 만들게 생겼으니, 버려야 된다. 이와 같이 ‘각자 생활하면서 오염된 더러운 마음과 행위’는 회개하여 깨끗이 버려야 된다.” (하셨다.)

22. 좁디좁은 5척 방에서 살아도 <지구 세계>와 <영의 세계>를 넓게 다 쓴다. <육의 세계>뿐 아니라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고, 다 사용하기 때문이다.

23. 개인에게 가서 불러도 모르니, 손가락으로 귀를 쑤시고 나왔다. “급해. 이 말 듣고 해!” 말해도 몰랐다. ‘왜 신부들이 귀머거리일까?’ 생각했다. 병어리가 되었으니 귀머거리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을 안 하니 병어리가 되었고, 병어리가 되니 귀까지 먹은 것이다. 평소에 <기도 교통, 부르기 교통, 대화 교통>을 안 하니, 귀머거리 신부’가 된 것이다.

24. 평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도. 선생은 성자도 부르고, 대화하고 싶은 자의 혼도 불러서 종일 대화한다.

<2014년 8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투시할 때, 파악할 때의 비법>

1. 동시에 보면 전체는 볼 수 있으나, 세밀하게는 못 본다. 쪼개서 보아라.

2. 하나씩 보아라. 그러면 자세히 세밀하게 볼 수 있다.

3. 말을 해도 한 가지씩만 해야 자세히 하게 된다.

4. <만물>도 하나씩 자세히 봐야 그중에서 ‘보화’를 찾는다.
 5. <사람>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씩 자세히 보아라. 그래야 ‘감춰진 사람 보물’을 찾는다.
 6.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보면, 그 사람의 ‘특성과 재능’을 못 찾는다. 한 가지씩만 보면 찾게 된다.
 7. 찾을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것만 종일 보고 다니면, 찾는 것이 더욱 가능하다.
 8. 시장에 가서 동시에 물건을 보면, 제대로 못 본다. 한 가지만 목적하고 보면, 집중해서 보니 확실히 보인다. <사람>도 그러하다.
 9. 청중 중에서 ‘목적한 한 사람’만 봐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행실도 보이고, 그 사람을 느끼게 된다.
 10. 한 가지만 하면, 집중되어 잘 보이고 잘 알게 된다.
 11. 꿈속에서도 한 가지만 보려고 집중하면, 제대로 보게 된다.
 12. <집중>은 ‘직통’이다.
 13. 산에 가서 산삼을 찾고, 상황버섯을 찾고, 송이버섯을 찾고, 영지버섯을 찾고, 난초를 찾고, 분재 솔이 있는지 찾으려면 ‘눈’과 ‘정신’과 ‘생각’을 그것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지 않으면, 있어도 스쳐 지나간다.
 14. <보고할 때>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고해야 더욱 제대로 자세히 하게 되어, 보는 자도 확실히 알고 답을 준다.
 15.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하면, 한 부분의 보고가 된다. 상대의 입장은 어떤지 100% 확실히 보고하고, 자기 입장도 100% 보고하여라. 저울에 달아 보면서 확실히 해야 된다.
 16. 보고를 보면, 장단점이 다 있다.
 17. 자기가 보고하지 않으면, 남이 먼저 보고하여 불이익이다.
 18. 자기 보고를 할 때는 하나님께 보고하듯 거짓 없이 하여라.
 19. <사명>도 집중하도록 한 가지만 맡겨라.
 20. 쪼개서 해야 집중하여 잘할 수 있다.
 21. 동시에 보니, 자세히 못 본다. 이 말은 동서남북을 동시에 보면 못 보는 것과 같다. <만물>을 봐도 한눈에 동시에 전체를 보니, 그 한쪽의 모양과 생김새와 내용과 질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것과 다 같이 보여서 스쳐 보인다는 말이다.
 22. 월명동을 볼 때도 ‘수십 가지’를 동시에 보니, 보고 왔어도 ‘어떤 한 가지’를 물으면 잘 모른다. 동시에 많은 것을 봤기 때문이다.
- 집중해서 ‘한 가지’만 보고 온 자에게 물어보면 넓이, 높이, 깊이, 무게, 생긴 모양과 형태, 그리고 질까지 다 알고 말한다.

23. 전체를 보면 집중이 안 된다. 반면, 하나만 보면 전체의 형태와 모양을 못 본다. 고로 <사람>도 <만물>도 쪼개서 ‘전체’를 보기도 하고, ‘하나’만 집중해서 보기도 하여라.

24.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전체’를 동시에 보기도 하고, 쪼개서 ‘하나씩’ 보기도 하여라. 그러면 장단점이 다 보인다.

25. <사람을 볼 때>도 ‘전체’를 보기도 하고, ‘한 가지씩’ 파악해 보기도 하여라. 그러면 장단점이 다 보이고, 자세히 알게 된다.

26. <성경>도 31,089절(개역개정판 기준)을 동시에 보면, 잘 모른다. ‘한 절’씩 보고, ‘그 센터 하나’만 봐야 제대로 알게 된다.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관리란, ‘존재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2. 관리하지 않으면, 썩거나 각종 문제가 생겨 존재하지 못한다.

3. 먼저는 <자기 관리>다. 그리고 <생명 관리>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관리>다. 이 관리는 결국 <자기 관리>가 되어 ‘자기 생각과 삶’이 썩지 않게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후에 관리해 오셨다. 그래서 ‘만물’도 ‘인간’도 존재하는 것이다.

6. ‘동물’만 관리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이 살 환경’도 필요하고 ‘동물이 먹을 먹이’도 필요하다. 고로 ‘동물이 사는 환경’과 ‘먹이’도 같이 관리해야 결국 ‘동물’도 존재하게 된다.

7. ‘비행기’만 만들고 관리한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상공’에도 법을 정하여 다니게 해야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또 비행기를 타기 위한 ‘공항’도 필요하고, ‘비행기를 운전할 기장’도 필요하고, ‘승무원’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해야 결국 ‘비행기’도 제대로 다니며 존재하게 된다.

8. 나무를 키우는 데도 <나무 자체>만 관리하며 가지를 치고 소독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나무의 육’과 같은 <흙>도 관리하여 ‘퇴비’도 주고 ‘물’도 줘야 나무가 제대로 크다.

9. 이와 같이 ‘인간’만 관리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도 있어야 하고, ‘먹을 것’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터전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먼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여 관리해 오셨다. 이로 인해 ‘인간’도 존재하게 되었다.

10. ‘인간’만 관리하고 ‘만물’은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위해 ‘우주’도, ‘지구’도, ‘만물’도 창조하시고 관리해 오셨다.

11. ‘우주 만물’을 그냥 놔둔다고 잘 운행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놔두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밀착 관리하신다. ‘인간을 존재시키기 위함’이다.

12. 사람도 ‘자기 몸’만 관리하면 아무리 관리해도 존재하지 못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환경’이 필요하니, ‘환경’도 같이 관리해야 병들지 않고 존재하게 된다.

13.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만물’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만 관리하고 ‘만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만물’이 오염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영향으로 결국 ‘인간의 생명’까지 쓰러지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만

물’도 생명시하며 관리하신다.

14. 그렇다면 왜 ‘인간’을 관리하며 존재하게 하셨는가? ‘인간의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함이다.

15.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영’만 관리하고 ‘육’을 관리하지 않으신다면, ‘육’으로 인해 ‘영’까지 고통을 받고 ‘영의 생명’까지 잃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위해 ‘육’을 관리하신다.

16. ‘신앙’과 ‘영적인 것’은 괜찮은데 ‘육’에게 문제가 생기면 곤고하여 쓰러지니, ‘육’이 ‘영’을 위해서 살 수 없다. 결국 그 영향으로 ‘영’에게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고로 ‘자기 육’과 ‘육에 해당되는 의식주’와 ‘육적 환경’도 철저히 관리하라는 것이다.

17. ‘마음’은 원하고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여 못 해 주니 문제가 일어난다.

18. ‘육’을 돕고 관리하는 목적은 ‘영’을 살리기 위함이다.

19. ‘육’이 현실에 처한 어려움의 영향을 받으면, ‘신앙’도 위기를 맞아 죽기도 한다.

20. ‘신앙’은 ‘육’을 발판 삼아서 한다. 고로 ‘육’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곤고해하고, 고통을 겪고, 흔들리면 ‘영’이 갈 길을 제대로 못 간다. 고로 ‘영’을 존재시키기 위해 ‘육’과 ‘육적 환경’을 관리해 줘야 된다.

21. ‘육’은 <영의 발판>이며, ‘의식주와 육적 환경’은 <육의 발판>이다. ‘발판’이 있어야 <뜻>도 이룬다. 고로 ‘발판’도 관리하라는 것이다.

22. ‘영’은 ‘육’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된다.

23. <영의 성장과 변화>, <영의 구원과 휴거>를 위해 ‘육’을 관리하는 것이다.

24. ‘육’이 죽으면, 떠들썩하던 세상도 조용해진다.

25. ‘육’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이 묶임을 받게 된다. 고로 ‘육에 해당되는 것들’을 관리하여 ‘영이 묶인 것’을 끊어 줘야 된다.

26. 화분의 ‘나무와 꽃’을 잘 존재시키려면, ‘발판’이 필요하다. 그 발판은 ‘화분의 환경과 흙’이다. 아무리 ‘나무와 꽃’을 잘 관리해도 ‘화분의 환경과 흙’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 영향으로 ‘나무와 꽃’도 죽게 된다. 고로 나무가 크면 ‘분갈이’를 해 줘야 ‘나무와 꽃’도 죽지 않고 잘 크다.

27. 나무에 ‘물’을 주고 ‘햇볕’을 쬌게 해 주는 것은 말씀을 전해 주면서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나무가 커서 뿌리가 뻗어 나간 만큼 흙을 갈아 주고 분을 크게 해 주는 ‘분갈이’는 ‘육에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28. 나무에 ‘물’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큰 만큼 ‘분갈이’를 꼭 해 줘야 되듯, 생명들도 클수록 ‘더 큰 사명지’에 배치해 주어 더 크게 뛰게 해 줘야 된다.

29. 어린아이가 클수록 ‘음식’도 더 많이 먹고 ‘활동’도 더 많이 해야 존재하듯, 모든 생명들이 그러하다.

30. 먼저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생명 관리>도 잘한다.

31. 말씀만 배우고 ‘영’만 관리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영의 터전인 육’도 관리하고, ‘육이 사는 데 필요한 것들’도 관리하고, ‘육과 연관된 자연’도 생명시하여 관리해야 된다.

32. <자기 관리>는 ‘영 관리, 혼 관리, 마음 관리, 육 관리, 육에 속한 의식주와 환경 관리’다.

33. <관리>는 ‘생명’으로서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것’이며 ‘제2의 생명 창조’다.

<2014년 8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적을 보아도 모르면, 그것이 기적인지 모른다.

2. 표적을 보아도 모르면, 그것이 표적인지 모른다.

3.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보여 주셔도 모르는 자는 전혀 모른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영적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5. <육적 사랑의 대상>으로는 ‘육적 사랑’을 느끼지만, ‘영적 사랑’은 못 느끼고 못 누린다.

6. <영적 사랑의 대상>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곤고하다.

7. ‘사연’을 모르면, 귀한 것을 받아도 모른다.

8. ‘어떤 사연 속에서 준 것’인지 알아야 귀한 것을 더 알게 된다.

9. ‘누가 누구에게 줬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다.

10. <자기>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상대>도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

11. <자기 것>을 못 느끼면 <상대의 것>도 못 느낀다.

12. <자기>를 못 느끼는 자는 죽은 자다.

13. <자기>를 모르는 자는 죽은 자다.

14. <자기 것>을 깨닫고 느껴야 <상대의 것>도 느끼고 깨닫는다.

15. 가령 <자기>가 기쁨을 느껴 봐야 ‘상대도 기쁨을 느끼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다.

16.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닫고 느껴 봐야 ‘많은 사람들이 겪고 느끼는 것’을 알게 된다.

17. <자기>를 모르는 자는 <남>도 모른다.

18. <자기>에 대해 많이 배워야 <남>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된다.

19. <자기>를 아는 자는 <남>도 잘 안다.

20. <자기>가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해 봐야 ‘고통받는 자들’을 알아준다.

21. <자기>를 제대로 아는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제대로 안다.

22. 인생은 같은 몸,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같은 형상이다. 고로 <자기>를 제대로 알면 <남>도

제대로 알게 된다.

23. <해 본 사람>만 ‘해 본 사람’을 안다.

24. 달을 본 자만 달의 형상이 15일간 변화된다는 것을 안다.

25. 더 차원 높이 아는 자는 ‘달의 형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달이 지구에 가려지는 만큼 작아지고 커진다는 것’을 안다.

26. <자기>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인식을 잘 못 한다.

27. ‘굳은 뇌’를 풀어 주고 ‘잘못된 인식’을 뒤바꿔 놓고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28. 자기 먼저 깨치기, 자기 먼저 만들기다.

29. <자기>를 모르니 <세상>도 모르고,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모른다.

30. 자기 구조와 형상, 즉 <육, 혼, 영>을 알면 <육의 세계>도 알게 되고, <혼의 세계>도 알게 되고, <영의 세계>도 알게 된다.

31. <자기 구조와 형상>을 알면, <다른 사람의 구조와 형상>도 알게 된다.

32. <자기 투시>는 <상대 투시>다.

33. 자기가 깨닫고 알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34. <자기>를 알아야 <타인>도 알게 된다.

35. 사랑도 <자기>가 느껴야 그제야 ‘상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다.

36. <자기>가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낀다. 성삼위는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해 주셨고, 선조 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선조들까지 사랑해 주며 인도해 주셨다.

37.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도 한 사람은 ‘상대의 사랑’을 빨리 느끼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의 사랑’을 늦게 느낀다. 이는 <자기>가 사랑을 느껴야 ‘상대가 주는 사랑’도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자>는 ‘상대의 사랑’도 빨리 느끼고, <자기가 사랑을 못 느끼는 자>는 ‘상대의 사랑’도 늦게 느낀다.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도 <자기>가 느끼고 알 때, 그제야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된다.

3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느낀 날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되지만, 실상은 느끼지 못했을 때부터 사랑해 주셨다.

40. 뇌가 굳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못 느낀다. 고로 자기에게는 안 주는 것으로 안다. 굳은 뇌를 풀면, 자기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41. 마음과 생각이 무지한 자는 주는데도 모르고, 받았어도 누가 줬는지 모른다.

42. 먼저 <자기> 깨닫기다. 그리고 <남> 깨닫기다.

43. <자기>를 신적 차원으로 만들면, <사람>도 신같이 잘 알게 된다.
44. <자기>가 차원 높여 살면, 그만큼 차원 높여서 <세상만사>를 알게 된다.
45. <자기> 무지, <남> 무지다.
46. <자기>가 모르니, <남>도 모르는 줄로 안다.
47. <자기>가 아니, <남>도 아는 줄 안다.
48. 사람들은 <남>도 <자기>와 같은 줄 안다.
49.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끼리’ 통하면서 산다.
50.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자기와 같은 자들끼리’ 모여서 산다.
5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되면, 그 세계에서 살게 된다.
52. 자기 알기, 자기 만들기다.
53. <자기>를 만든 자가 <남>도 만든다.
54. <자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알게 된다.
5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사명대로 <육 세계, 혼 세계, 영 세계>를 알게 된다.
56. 모르는 자는 아는 자가 20년, 70년 전부터 알고 얻고 살아온 것도 모르고 산다.
57. <자기>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배우고 알고, <구원자>를 제대로 배우고 알고 살아라. ‘스스로 깨달아 아는 단계’가 있고, ‘가르쳐 줘야 아는 단계’가 있다.
58. 알고 행해야 얻는다.
59.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사랑하며 기뻐하며 사는 자가 있고, 불평불만 속에 사는 자가 있다. 자기를 아는 만큼, 자기를 만든 만큼만 누리며 살기 때문이다.
60. 매일 배우기다. 매일 행하기다.
61. <자기 자신>이 ‘배움의 책’이다. ‘자료’다. ‘자본’이다. ‘선생’이다. ‘멘토’다. ‘감독’이다. ‘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다. ‘선수’다. ‘주인’이다.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새벽잠언>

* 이번 주는 수요일에 <성자 계시> 틀기.

1. 시작이 승리다.
2. 일을 할 때 ‘이 일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네? 다른 일 먼저 해 놓고 이 일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이 수개월씩 늦어진다.

3. 시작해라. 시작이 승리다.
4. 시작만 하면 별것도 아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끝나게 된다.
5. 일은 시작하기 전에는 크게 보여 엄두가 안 난다. 그러나 시작하면 바람 빠진 풍선같이 작게 보인다.
6. 시작하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그쪽으로 쏠려서 ‘일’은 눈 밑에서 논다.
7. 작은 일도 시작하지 않으니 몇 달, 몇 년이 가도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다 결국 부담이 되어 그 일을 피하게 된다.
8. 시작하니, 일이 줄어들어 할 것이 없었다.
9. 꿈에 내 혼이 전셋집에 들어갔다. 제자들이 그 집을 새집처럼 만들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페인트칠을 하고, 벽에도 페인트칠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선생이 제자들에게 “내 집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갈 것인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했다.
10. 전셋집에 이사 와서 잠시 살다 가는데,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면 됐지, 지붕에 페인트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11. 잠시 머물다가 갈 집인데 지붕에 페인트칠까지 할 필요가 없듯이, 생활하면서 ‘필요 없는 일’은 하지 말라는 계시다.
12. 주를 위한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일’에 투자하지 말라는 계시다.
13. 꿈을 깨고 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모두 제재시켰다.
14. 지도자를 위해서도 필요 없이 과잉 충성하지 말고, 하늘 앞에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15. 실력이 없으면, 자기도 감당을 못 한다.
16. 구원자도 감당을 못 하는 자가 있다. 그 원인은 본인이 한계선을 넘어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자도 감당을 못 한다.
17. ‘구원자’도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구원받을 본인’도 최선을 다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18.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 맺을 기간>을 준다. 3년이 지난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 없앤다.
19. 인생도 <구원받고 휴거될 기간>을 주고 때가 지나도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죽었으니 버려둔다.
20.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21. 자기가 육적으로 살아서 육적으로 받았어도, <영혼>은 성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22.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영>을 위해 <육>을 관리하라는 것이지, ‘육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23. <영>을 구원해 놓으면, 육적인 것을 못 하여 육적으로 빈곤해도 하나님이 “왜 내게 물질을 바치지 못했느냐?” 하지 않으신다.

24. <영>을 구원해야 그 영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쓰고 사랑하며 살기에 <영>을 구원시켜 놓으면 된다.
25. <육>을 관리해라.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함이다. <육>이 못 하면 <영>도 변화되지 않는다.
26. <영혼>은 망했어도 <육>은 존재한다. 고로 <육신>만 보면 모른다.
27. 배로 투시하기다.
28. 확인한 만큼 배로 내다볼 수 있다.
29. <뇌>는 ‘생각’이 잘못됐을 때, ‘생각’으로 인해서 병든다.
30. ‘생각’이 온전해지면 <병든 뇌>도 온전해진다.
31. 머리를 ‘육적’으로 쓰면 <수박 통>이 되고, ‘영적’으로 쓰면 <황금 통>이 된다.
32. ‘생활의 웃음, 삶의 웃음’을 지으며 살아라.
33. ‘마음’이 불의로 움직여서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 ‘육’이 불의를 행하며 사는 <하 차원의 인생>이 있고, ‘마음’만 불의하게 생각하다가 참고 다스려 ‘육’으로는 불의를 행하지 않는 <중 차원의 인생>이 있고, 아예 ‘마음’으로도 불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최고 상 차원의 인생>이 있다.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한 존재물’을 창조하고 존재시키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다른 존재물’을 창조하고 관리하며 존재시켜야 된다.
2. 사람이 ‘새’를 아무리 관리하고 사랑해 줘도 ‘새가 사는 환경’을 관리하지 않고, ‘새가 먹는 벌레’를 잡아서 없애 버린다면, 결국 ‘새’도 죽게 된다. ‘새’를 위해 ‘새가 사는 환경’도 ‘새가 먹는 벌레’도 관리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만물보다 높은 존재’인 <인간>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 ‘인간보다 낮은 존재물’인 <만물>을 그 차원대로 생명시하며 관리하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구’를 존재시키기 위해 ‘지구의 터전인 우주’를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또한 ‘인간’을 존재시키기 위해 ‘인간이 사는 터전인 지구’를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또한 ‘인간의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해 ‘영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터전인 육’을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5.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고 관리하시며, ‘육’을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휴거시켜 취한 것’이 ‘<우주 만물 전체>를 취한 것’과 같다고 하셨다.
6.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함이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영’을 창조하고 구원하여 천국에 오게 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다.
7. 그래서 ‘자기 육신’을 생명시하며 관리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자기 영’을 존재시키며 성장시키고 ‘천국의 영’으로 변화시켜 천국에 보낸다.
8. <육>이 지상에서 살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배우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영>이 ‘하늘나라 형제’로 형성되고 변화된다. 그리함으로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생명권 속에서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게 된다.

9. ‘영’을 구원하지 못하면 결국 그 <육>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영>은 사망 지옥으로 사라져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 없는 영이 된다.
10.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영’을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니다. ‘나비’가 되지 못한 ‘애벌레’는 사람이 손을 안 대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땅에 기어 다닌다.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영’은 하나님이 그 영을 지옥에 넣지 않아도 스스로 사망 지옥으로 가게 된다.
11. ‘자기 육의 행위와 삶의 결과’로 인해 ‘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12. <지옥>은 순간 가는 것이 아니다. ‘육’이 오랜 세월 동안 악을 행함으로 ‘자기 영’이 악하게 변질되어 <지옥>에 가는 것이다.
13. <집>도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듯, <영>도 순간 변화되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순간 가는 것이 아니다. ‘육’이 삼위를 믿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살면, 마치 집을 지을 때 수고한 만큼 시간이 가면서 점점 완성된 집으로 변화되듯, ‘영’도 ‘육의 행위’를 받아 점점 <천국의 형제>로 변화되고 완성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다.
14. ‘천국을 향해서 사는 영’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지만, ‘지옥으로 가는 영’은 하나님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신다.
15. ‘선악 간의 자기 육의 삶의 결과’로 ‘자기 영’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게 된다.
16. ‘자기 육의 행실의 결과’로 ‘자기 영’이 변화되어, 자기 영이 변화된 만큼 <그 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17.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은 영’이 돼야 <천국>에 간다.
18. 악을 행하여 ‘무섭게 변질된 영’이 되면, 결국 <악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게 된다.
19. 농부는 과일나무를 심어 놓고, 몇 나무만 빼고 가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무를 다 가꾸고 다 퇴비를 한다. 그동안 미련 없이 모든 나무를 다 가꾸었으니, 때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밖에 버려둔다.
20.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다 관리하신다. 그리고 모두 다 구원받도록 미련 없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향해 하늘이 할 책임을 다하셨기에 때가 됐는데도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은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생명권 밖으로 버려두신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생명권 밖으로 나간 것이다.
21. ‘열매 맺지 못한 과일나무’는 밖에 버려두고 베도 전혀 아깝지 않다. 그 나무는 베고, 그 자리에 희망으로 ‘다른 과일나무’를 심어 정성껏 관리한다.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하다.
22. ‘천국의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세상 육신의 삶’만 살다가 끝난다. ‘그 영’은 사망으로 사라진다.
23. ‘자기 영’이 <지옥> 쪽에 가 있으면, 과거에 ‘자기 육’이 아무리 사랑의 향락, 부귀영화, 영광, 권세, 명예를 누렸더라도 ‘영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현실에 뇌와 심장을 칼로 찌르고 뜨거운 불로 지지는 고통만 느껴져서 괴롭다.
24. ‘자기 영’이 구원받고 <천국급>에서 산다면, ‘육의 기쁨’이 ‘영’에게도 연속되어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 또한 ‘육이 받은 영광, 희락, 명예, 권세’를 ‘영’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생각할수록 기쁨이 폭발되고, ‘육’으로도 ‘영’으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된다. 또한 ‘육이 받은 고통’까지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으니, 그것도 자랑하며 살게

된다.

25. <현재> 성공하여 이상세계에서 사는 자는 ‘과거에 겪었던 좋은 일’뿐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일’까지 다 추억하면서 이야기하며, 보람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누리고 살게 된다.

26. 그러나 <현재> 실패 속에 고생하면서 고통을 받고 사는 자는 ‘과거의 좋은 일’을 생각할수록 더욱 괴롭고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일들’로 인해 연속해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27. 영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구원받고 휴거되어 성공한 영은 ‘과거에 세상에서 좋았던 일들’과 ‘고통스러웠던 일들, 핍박받았던 일들’까지 다 보람이 되어 기쁨 속에 살아간다.

28. 하나님은 ‘식물’을 창조하여 존재시키기 위해서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흙’을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또한 ‘흙’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고 관리하신다. 또한 ‘지구’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만유인력과 중력’을 창조하여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 그리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게 하여 생명의 역사를 하신다.

29. 사람도 ‘영’만 창조하여 관리하면, 존재하지 못한다. ‘영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터전인 육’을 창조하여 관리하고, ‘육이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와 만물’을 창조하여 관리해야 결국 ‘영’도 존재하게 된다.

30. ‘물고기’를 사다 놓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다. 물고기가 살 ‘물’이 필요하고, ‘먹이’가 필요하다. 그리고 ‘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물고기가 살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물고기’가 죽지 않고 존재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권관의 생명의 역사>로 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직접 관리하며 필요한 것을 주시지만, 사람들도 <역사>를 존재시키기 위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놓고 관리해야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원의 역사>를 펴게 된다.

31. 돌이나 동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놔도 세울 수는 없다. ‘조각상을 세울 지지대’를 만들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이 세상에 강림하여 <뜻>을 이루려면, ‘발판’이 있어야 한다. ‘그 발판’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쓰는 <육신을 가진 구원자>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또 하나의 발판’이 있으니, <구원자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자들>이다.

<2014년 8월 15일 금요일 새벽잠언>

1. 물건은 쓸수록 빛난다.
2. 물건을 안 쓰면 녹슬고, 고장 나고, 썩는다.
3. 차가 새 차라도 안 쓰고 가만히 두면 헌 차 된다.
4. 중고차라도 써야 빛이 나고, 쓰면서 고장 난 곳을 고쳐서 쓰니 새 차처럼 된다.
5. 사람도 안 쓰면 녹슨다. 써야 문제를 고치면서 새 사람이 된다.
6. 자기를 써라.
7. 자기를 안 쓰면 ‘뇌’가 썩는다. ‘마음’도 썩는다. ‘몸’도 썩는다.
8.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자기를 써라. 고로 썩지 말아라.
9. 시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사는 자는 영적으로 보면 썩고 있다. 썩은 것은 버려도 아깝지 않다.
10. 과일을 사다 놓고 안 먹으면 결국 썩어서 버린다. 사람도 쓰지 않으면 결국 ‘마음’도 ‘행실’도 썩어서 못 쓰게 된

다.

11. 써야만 안 썩는다.

12.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면서 항상 자기를 써라. 그러면 자기가 썩는 것을 방지한다.

13. ‘썩는 것’이란, ‘점점 죽는 것’이다.

14.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죄’로 인해서 썩어 버린다. 점점 죽어 간다.

15. 매일 차를 쓰는 주인을 만난 차는 녹슬지 않는다.

16. 매일 차를 안 쓰는 주인을 만난 차는 녹슨다.

17. 매일 자기를 쓰는 ‘욕’을 만난 ‘혼과 영’은 썩지 않는다.

18. 부지런한 주인은 ‘차’도 ‘자기’도 썩히지 않는다.

19. 게으른 주인은 <차>도 썩혀 ‘폐차’가 되게 하고, <자기>도 썩혀 ‘폐인’이 되게 한다.

20. 젊은데, 게을러서 ‘자기 인생’을 썩힌다.

21. 젊고 앞날이 창창하여 아까운 인생인데, 게을러서 자기를 쓰지 않아 썩히니 버려도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었다.

22. 부지런한 주인이 되어 ‘욕신’도 빛내고 ‘영’도 빛나게 만들어서 써라. 그리함으로 ‘영’이 영원히 빛나게 해라.

23. 젊은 인생들도, 장성한 인생들도 <시대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행하여 ‘욕’도 빛나게 쓰고 ‘영’도 귀히 쓰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해라.

24. 귀한 인생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행하여 ‘욕’도 ‘영’도 빛내면서 영원한 일을 해라.

25. 인생을 모르고 ‘학문’이나 배우고 ‘세상’이나 배우고, 희망 없이 만족 없이 허무하게 살아간다.

26. 모르니, 모르는 대로 꿈과 야망에 불타고 있다. 그러나 모르니, 인생을 썩히면서 한숨을 쉬며 살아간다.

27. <무지>같이 억울한 것이 없다.

28.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살면, 딴 세상이 되어 살게 된다.

29. 세상에 속한 권세자, 명예자, 영웅 열사라도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살면, 불쌍한 인생이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30. <영원한 세계>를 차지하고 사는 자에게만 명예와 권세가 영원하니, 그가 우러러볼 자다.

31. 세상에 속한 권세와 명예와 영화는 한 해에 크고 끝나는 풀이나 꽃이나 잎이나 열매와 같다.

32.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자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권세와 명예가 영화롭고, 욕이 죽어도 그 영에게 영원한 권세와 명예와 영광이 주어진다.

33. 성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구원자를 믿고, 시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큰 자다. 세상의 어떤 스타나 권세자나 명예자나 영웅 열사라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34. 안 쓰면 썩는다.

35. 써야 빛난다.

36. 썩는 것같이 무서운 것도 없다.

<2014년 8월 16일 토요일 새벽잠언>

1. 대화해야 가까워진다.

2. 대화해야 깊은 것을 알게 된다.

3. 대화해야 사랑하게 된다.

4. 대화해야 교통된다.

5. 대화해야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6. 대화해야 인봉을 뚫는다.

7. 대화해야 안 줄 것도 준다.

8. 대화해야 성자가 그 욕을 통해서 주신다.

9. 방어리는 대화를 못 한다.

10. 대화해야 알게 된다.

11. 대화하지 않으면 모른다.

12. 말 안 하면 모른다.

13. 얼굴을 대하면, 대화하여라.

14. 대화의 차원을 높여라.

15.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차원 어느 세계에서 사는지 안다.

16. 산 자는 대화한다.

17.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후부터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

18. 타락하면, 대화가 끊어진다.

19. 죄를 지으면, 회개할 때까지 대화가 끊어진다.

20.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16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노아와 대화하셨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낸 자’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어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내지 않은 자’와는 대화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시대 말씀’을 안 주신다.
23. ‘보내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위적 행위>이며, <자기 주관적인 비진리>이며, <유혹하는 이단>이다.
24. 보낸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대화>로 ‘시대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 알고 좇는다.
25. 대화해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안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자’가 오면, 거짓된 자들과 이리와 여우 같은 교활한 지도자들을 다 밝혀 심판하고, 시대에서 사라지게 한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진정 대화하지 못하는 자들은 <육적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주관적 대화>를 하게 되고, <사탄의 거짓된 꾀와 유혹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
28. 사탄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보낸 자’를 가장하여 꾀면서 거짓 계시를 준다.
29. 자기중심, 자기 의지, 자기 주관적 계시는 받는 자 스스로는 잘 모른다. 그러나 ‘시대 보낸 자’는 다 안다. 성자는 ‘자기 육으로 쓰는 보낸 자’를 통해서 계시를 다 검토하신다.
30. 사탄 마귀는 ‘주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물러간다.
31. 사탄 마귀는 ‘이긴 자’를 통해서 이겨야 다 이길 수 있다.
32. <대화>는 시대에 따라 차원이 달라진다.
33. 하나님은 <구약> 때는 ‘종급 대화’를 하였고, <신약> 때는 ‘자녀급 대화’를 하였고, <성약> 때는 구원자와 함께 시대를 따르는 신부들과 ‘신부급 대화’를 하신다.
34. 자녀급끼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랑의 대화, 신부급 대화’를 할 수 없다.
35. 오직 <신부급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만이 서로 ‘신부급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도 ‘신부급 대화’를 할 수 있다.
36. 하늘 말을 배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기다.
37. <신부 시대>가 왔으니, ‘사랑의 대화’를 하기다.
38. 지금은 <휴거 때>이니, ‘휴거의 대화’를 하기다.
39. 대화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1. 일어날 때가 되어서 잠을 깼는데 또 자는 자는 마치 자기 옷이 땅에 떨어져서 진흙이 점점 스며들어 더러워지는 것과 같으니라.
2. 일어날 시간인데도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는 자는 마치 차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내릴 곳을 벗어나서 필요 없이 계속 가는 자와 같으니라.
3. 자기 할 일을 두고도 안 하는 자는 마치 매향 소가 줄을 풀고, 주인의 마음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거리로 뛰어나다니는 것과 같으니라.
4. 자기 할 일을 두고 안 하는 자는 마치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는 자와 같으니라.
5. 일어날 시간에 안 일어나고 더 잠을 자면, 그 시간에 '성자와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 함이니라.
6. 일어날 시간에 잠을 더 잤더니, 꿈에 어떤 괴물의 새끼가 점점 크더니 나를 공격해 왔다. <기도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에 잠을 자면, 그 시간은 '사탄의 시간'이 되어 사탄이 괴물같이 점점 공격해 오는 것과 같음이니라.
7.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일어나기 힘든 것같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도 그와 같이 힘든 것이니라.
8. 잠을 자다가 일어나기 힘들듯이,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은 힘드니라. 눈을 떴을 때 결심하고 즉시 일어나듯, 일을 할 때도 강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수 있느니라.
9. 할 일을 놓고 '제시간에 시작을 잘하기'는 제시간에 잠을 깨서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니라.
10. 만사의 모든 할 일을 놓고 '시작하기'가 어렵고, '시작하고 끝까지 하기'가 그리도 어려우니라.
11. 힘들고 고생돼도 시작하여 행하는 자는 성공하고 승리한 자이니, 그 일의 주인이 된 것이니라.
12. 힘들고 고생된다고 쉬운 일만 하다 보면, 크게 거둘 것이 없느니라.
13.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고생돼도 일을 크게 하면, 점점 더 좋아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되느니라.
14.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사랑'하면서 접붙여서 행해야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15. <현실의 육신의 일>과 함께 <영원한 일>을 해야 하느니라.
16. '필요 없는 잠'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비유하여 보이느니라.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실 때 '자기 행위'가 옳지 않으면, 그 '옳지 못한 행위'를 '만물의 여러 현상'으로 보여 주며 모순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18. '아름답지 못한 행실'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계시하여 보여 주느니라.
19. 같은 시간이라도 잘 써야 황금 시간이니라.
20. 황금같이 쓴 시간만 황금 시간이니라.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비유>로 말씀하시느니라. 고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비

유 자체>가 <말>이니라.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에서나,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말>로 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보여 주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나니, 그것을 보는 자가 ‘말’로 깨달을지니라.

23. 전능자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창조하신 만물>을 ‘글’로 ‘말’로 사용하며 말씀하시느니라.

2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는 ‘하늘 언어’는 수조 단어라서 셀 수가 없느니라. ‘하늘 언어’를 배운 자만 <만물의 글>을 읽고 듣고 ‘비유’로 말함을 아느니라.

25. 전능자는 항상 개인에게 말씀하시니,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의지’로 아느니라.

2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밤낮으로 할 말을 하듯, 밤낮으로 <만물의 언어>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하늘 언어’를 배운 자만 보고 알아듣느니라.

27. ‘하늘 언어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에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계속해서 배워야 하느니라. 그러면 <하늘 말>을 통역하기까지 하느니라.

28. <온전치 못한 행실>은 ‘틀린 글씨’와 같아서, 그것은 어느 시대의 누가 봐도 틀린 글씨대로 읽듯이 온전치 못한 행실대로만 보느니라.

29. 가령 숫자 ‘9’를 ‘1’같이 보이게 제대로 안 썼으면 어느 시대 누가 봐도 ‘1’로 읽듯이, 아무리 의롭게 <마음>을 먹고 행했어도 <행실>을 마음과 다르게 온전하지 못하게 행했다면 누가 봐도 온전하지 못하게 보는 것이니라.

30. ‘틀린 글씨’는 틀리게 읽을 수밖에 없듯이,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보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보고 판단하느니라. 고로 온전히 제대로 행해야 하느니라.

31. 저마다 오해받지 않으려면, 행실을 온전하고 확실하게 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보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2014년 8월 19일 화요일 새벽잠언>

1. <뇌>는 ‘몸의 축소체’이고, <몸>은 ‘뇌의 확대체’다.

2. <몸>은 순간 자기가 하는 것 한 가지밖에 못 하듯, <뇌>도 몸같이 두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다.

3. <뇌>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일한다. <뇌>라고 해서 순간 두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한다. / <몸>이 ‘서쪽’에서 일하면 ‘동쪽의 일’은 못 한다. <뇌>도 그와 같다.

4. 공장에서 <자동기계>가 ‘한 가지 부속품’을 집어서 끼울 때까지 ‘다른 것’은 못 잡고 못 끼운다. ‘그것’이 끝나야 ‘다른 부속품 한 개’를 또 옮길 수 있다. <뇌>도 ‘한 가지’를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분별하면, 그때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이 끝나야 ‘다른 것’을 또 하게 된다. 만일 <뇌>에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넣어 놓으면, 헷갈리고 복잡하여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5. <말>도 급하다고 한꺼번에 ‘두 단어’씩 발음을 못 한다. 한 마디씩 연결해서 해야 된다. <뇌>도 그러하다.

6. <역사>도 급하다고 한꺼번에 ‘두 역사’를 펴지 않으신다. ‘구시대’가 끝나야 ‘새 시대 역사’를 행하신다.

7. 하나님은 ‘한 시대’에 ‘구원자 두 명’을 보내지 않으신다. ‘한 시대’에 ‘한 인물’이다.

8. <삶의 구원>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행하면서 자기 행실로 구원을 이룬다 함이다.
9.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말 자체’가 <만물>이 되게 하였고, <만물>이 ‘실체’가 되게 하였고, <만물>이 ‘글’이 되게 하셨다.
10. 인간은 손과 몸으로 행해야 무엇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손과 몸으로 일일이 만들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여 시간이 흐르게 하면서 창조하셨다.
11.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라 하여 만물이 만물을 낳게 했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만들어라 하여 사람이 사람을 낳고 번성하게 하였다.” 하셨다.
12. 하나님은 ‘만물의 글’로 인간에게 말씀하시며 인간과 대화하신다.
13. 신령해야 ‘만물의 글’을 읽는다.
14.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어떤 입장에서 그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
15. ‘말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만물>을 보이며 비유로 말씀하신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에나 <생시>에나 ‘깨달음’을 주며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나 혼으로도 대화’하시고, ‘만물로도 대화’하시고, ‘직감과 감동’을 주며 말씀하시고, ‘구원자를 통해 말씀’으로 할 말을 하시며 대화하신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나 <만물>을 글’로 사용하시며 말씀하신다.
18. 그때마다 ‘합당한 사람이나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9. 어떤 만물을 집중적으로 보이면, ‘글씨’를 보인 것이다. 그 <만물의 글>을 읽고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성자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늘 언어’를 깨닫게 된다.
20. 청소하다가 보니 ‘며칠 전에 사 놓은 사과 하나’가 폭 썩어 있어서 냄새가 나서 빨리 치웠다. 그때 깨달아지기를 <육적>으로는 ‘육의 생명이 죽은 것’을 말함이고, <영적>으로는 ‘섭리의 생명이 타락하여 신앙이 아주 죽은 것’을 말함이었다. 결국 성자가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편지가 와서 확인되었다.
21. <끝까지 간 자>만 ‘산 자’다. <가다가 만 자>는 ‘죽은 자’다.
22. ‘보고 깨달은 것’이 <계시>다.
23. 본인이 보고 깨달은 것이 있고, 성자가 보여 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
24. ‘성자가 말한 것’이 <계시>다.
25.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눈’으로 동시에 ‘수만 가지의 만물’을 본다. 그것이 다 <계시>가 아니고, ‘그중에서 한 가지를 찍어서 특히 깨닫는 것’이 <계시>다.
26. 마치 육이 생시에 만물을 보듯이, 꿈에서도 자기 혼이 ‘각종 것’을 보게 된다. ‘그중에서 특히 잘 보이고 깨닫는 것’이 있다. 그것이 <계시>다.
27. 성자는 계시할 것이 있으면, 특히 한두 가지를 부각되게 보여 주며 말씀하신다. <말>로 안 하고 <만물의 실체>를

보여 주며 ‘하늘 언어’로 말씀하여 깨닫게 하신다.

28. 본다고 해서 다 <계시>가 아니다. 생시에 눈을 뜨면 ‘수만 가지의 만물’을 본다. 만일 만물 전체를 다 보여 주면서 계시한다면, 그것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29. ‘성자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계시>다.

30. <계시>도 ‘쫓개서 보기’다. <대화 계시>가 있고, 어떤 것을 특별히 보여 주고 말해 주는 <특별 계시>가 있고, 자기 행위를 깨닫도록 하는 <깨달음의 계시>가 있다.

31. 육도 혼도 영도 신령한 차원에 이르면, <계시>를 확실히 분별한다.

32. <설교 말씀>은 ‘성자의 계시 말씀’이다.

33. <잠언>은 ‘깨달은 것’과 ‘성자가 계시하신 말씀들’이다.

34. 누구든지 <계시>는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차원’에 따라 다르다. ‘사명’에 따라 계시를 받는다. 또한 때에 따라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며 깨우쳐 주신다.

35.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매일 주시는데, 못 깨닫는 자는 모른다. 깨닫는 자만 알고 행한다.

36.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의 계시에 속한 것이다.

37. ‘성자의 시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계시를 받은 것과 같다.

38. 지금은 <계시 시대>다. 성자가 오셔서 ‘마지막 휴거의 뜻’을 이루시려고 계시해 주는 것이다. 성자가 오셔서 대화하고 사니, ‘대화의 문’이 열렸기에 계시해 주는 것이다.

39. 먼저 자기가 기도하든지 평소에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신다.

40. <하늘 언어>를 배우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과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

41.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하늘 말>이다. 고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자’는 ‘그 말을 듣는 자’다.

42. <의문이 풀리지 않은 것>은 ‘신비한 것’이다.

43. <묘기>도 의문이 안 풀리면, 신비하다.

44.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거든 <명승지>나 <유명한 관광지>로 가야 하고, ‘하늘의 사연과 뜻이 어려 있어 하나님 역사의 향기가 휘날리는 곳’을 보려거든 이 시대에는 <월명동>으로 가야 된다.

45.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산’이 따로 있고, ‘하늘 사연이 얹힌 곳’이 따로 있다.

46. ‘물’을 많이 보려면 <해변가>로 가야 하고, ‘더 많은 물’을 보려면 <먼 바다>로 항해하고 떠나야 하듯, ‘하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섭리역사를 시작한 월명동>으로 가고, 하나님 역사를 더 깊이 보려면 <사명자의 말>을 들어 보아라.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새벽잠언>

1.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말해 놓은 것, 응답받은 것, 약속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야 때가 되어 주시면, 알고 받는다.
2. 상대와 대화를 주고받을 때 자기가 상대에게 이야기한 것을 잊어버리고 이야기하면, 상대가 이전에 대화할 때 들은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합당하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한 내용의 핵을 잊으면, 때가 되어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해 줘도 못 알아듣고 끝난다.
4.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한 것을 잊으면, 때가 되어 '약속받은 것, 응답받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고 실패한다.
5.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영원한 영의 운명'과 '육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6.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잊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해 주셔도 '요시아 왕'처럼 무지 속에 상극하여 해를 당한다.
7. 약속한 것을 줄 때는 은밀히 주시고, 사람을 통해 주시고, 여건을 통해서 각종으로 감동을 주며 주신다. 고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머리에서 잊지 말아라.
8. 우체국에 물건을 부쳐 놓고 '생각'에서 잊으면, 누가 그 물건을 찾아가냐? 이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은 자가 '내용'을 잊어버리면, 줘도 누가 알고 받아 가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평소에 말해 놓은 것을 잊지 말고, <핵심>을 기록해 놓아라. 그리고 수시로 물으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받기 위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다.
9. 기도하고 간구하고 원하고 바라던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다.
10. 구약 때 율법주의자들은 '메시아'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렸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메시아'를 보내 준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도한 내용과 응답받은 내용을 잊어버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보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악평하며 이단으로 몰아 '적그리스도'로 선언했다.
11.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합당한 사람'을 보내신다.
12.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메시아를 보내 달라고 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여 구원받았다.
13.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신약역사>도 2000년 동안 펼쳐져 오면서 "메시아가 다시 온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다. 역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이 시대에 맞게 '구원할 자'를 보내어 <새 역사>를 펴 나가신다.
14.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까지 받았는데 그것을 잊고 악평하고 불신하니,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맞고 <휴거 역사>를 이루고 있다.
15. <휴거 역사>를 맞았는데도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잊고 '자기 삶'에 빠져 사는 자들이 있다.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고 끝난 '사탄과 인사탄의 꾀'에 빠져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있다. 고로 기다렸던 <휴거 역사>를 맞지 못한다.
16. 네가 간구하고 응답받은 것이 <휴거>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라.

17. 불신자, 무지자, 육적인 자, 불의한 자, 교만한 자, 형식으로 믿고 행하는 자는 '구원자'가 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눈앞에서 '역사'를 펴 나가셔도 모른다.
18. 교만하여 형제를 무시하니, <형제 가운데 온 메시아>까지 무시하여 몰라본다.
19. 무지하니, 가르쳐 줘도 '자기 무지'에 가려서 <진리>를 믿지 못한다.
20. 육적이니, 육만 보고 판단하느라 <메시아>를 몰라본다.
21. 자기가 불의하니, '자기 불의'에 가려서 <메시아>를 몰라본다.
22. 믿어도 형식으로 믿으니, 하나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천사들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23. 모르면 <메시아>도 몰라보고 악평하고 이단시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다. 고로 꼭 기도하고 간구하고 말한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줄 때까지 기록해 놓고 수시로 물어보아라.
24. 줄 때는 '시대'가 다르고 '때'가 달라서 그 때에 맞게 합당하게 주니, 이를 깨닫고 받아라.
25. 준다고 약속하셨어도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수시로 물어보고 기다리면서, 자기도 차원 높여 행해야 주신다.
26. 귀한 것은 준다고 약속했어도 '조건'을 갖춰야 주신다.
27. 준다고 약속을 받았어도 계속 기도하고, 수시로 물어보고, 자기도 그에 맞게 행하면서 기다려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서운함을 탄다.
28. 이미 약속한 것을 줬는데도 자기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잊어버리니, 받았어도 모른다.
29. 약속받고 응답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조건을 세우고 기도하며 희망으로 기다려라.
30. 기도하고 바라던 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1. 기도하고 바라던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르게 '다른 통로'로 이루어진다.
32. 예수님 때도 율법 신앙인들이 무지하게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지 않았다. 다른 방법으로 왔다. 곧 '땅'에서 '인구름' 타고 '말씀'을 가지고 왔다.
33. 자기가 기도했는데 모르면, 다른 사람이 이룬다.
34. 자기가 기도해 놓고는 못 기다리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
35. 자기가 기도했기에 '사명'을 맡겼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고 안 한다. 그러니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된다.
36.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서운하게 한 역사는 없었다. 항상 사람이 '자기 무지로 인한 사고'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37.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받은 '사탄과 악인들의 껌'을 받아, 그 말을 듣고 쓰러지느냐.

네 <평소 신앙>을 확인하여라! <평소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 ‘사탄의 꾀’과 ‘인사탄의 꾀’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38. 사탄과 인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정도의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

39. 우리가 기도하고 약속받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잊지 않고 ‘조건’을 세우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갓춘 자’에게 주신다.

40. 순종자는 가다가 받고, 불순종자는 구해 놓고도 뺏긴다.

41. 그동안 섭리사에서 물질 손해를 본 것은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성자바위>로 주시고, 또 <큰 작품>으로 주셨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자의 방법’대로 주셨다.

42.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주실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대로 안 주시고, ‘하늘의 방법’으로 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

43.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받으니, 기도한 것을 받았으면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고 물어보고 확인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44. 섭리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다. 사명자가 무엇이든지 합당하게 구하면 성자는 “내가 하면, 나도 같이 구하지.” 하신다.

4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때마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쓰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무지 속에 상극하지 않는다.

46. 이것을 꼭 기억해라. 첫째, 기도한 것, 응답받은 것, 약속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둘째, 줄 때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방법’으로 주니, 여러 가지로 마음 문을 열고 기다려라. 셋째, 줄 때는 ‘자기 생각’과 다르게 주니,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여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아라.

<2014년 8월 21일 목요일 새벽잠언>

1. 1000명이 뭉쳐서 하면 600개 정도를 하지만, 1000명이 개인이 잘해서 각각 하면 1000개를 하게 된다.

2. 10000명이 한목소리로 숫자를 1부터 10000까지 세면, 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10000명이 각각 세면, 30분 안에 센다.

3. 개인이 잘하면 상상도 못 하게 부흥되고, 대역사가 일어나고, 개인도 유익을 얻게 된다.

4. 뭉쳐서 하면 지도자들만 얻고, 지도자들만 빛나고, 지도자들에게만 영광이 된다. 개인은 해 볼 시간도 없다. 고로 실전에서 약해진다.

5. 각자 설교도 해 보고 실천할 것도 해 보면 개인이 다 해 보게 되니 개인이 빛나고, 유능해지고, 개인이 영광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영광을 받으신다.

6. 올림픽경기 때 <단체전>은 1등을 해도 ‘금메달 한 개’로 쳐서 개인 한 명이 딴 것과 같이 된다.

7. ‘음식 맛’보다 ‘성자 사랑 맛’이다. ‘성자와 대화 맛’이다. <사랑>은 ‘대화’다.

8.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야심 찬 마음>을 세워라.
9. '단체 점수'는 잘 나오는데, '개인 점수'가 잘 안 나온다.
10. 단체로 모일 때는 가끔이다. '개인 시간'이 인생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1. 단체로 서기는 쉽다. 그러나 '홀로서기, 홀로 처신하기'가 어렵다.
12. 혼자 잘하는 자가 천재다.
13. 천재가 되려면 '혼자서도 잘하기'다.
14. 혼자 잘하는 자란, 남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혼자 '옳은 방향'으로 '성자의 생각'대로 잘 생각하고 행하는 자다.
15. 혼자 살면 청소도 자기가 해야 하고, 집안의 모든 일도 자기가 해야 된다. 고로 부지런하고, 생각과 몸을 놀리지 않고,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16. 혼자 잘하는 자는 참으로 큰 자다.
17. 혼자 잘하는 자는 혼자서 잊지 않고 '옳은 방향, 성자의 생각'대로 부지런히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니, <뇌와 생각과 몸>이 얼마나 살아 움직여야 되겠느냐.
18.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모기를 잡듯, 모든 일을 해야 된다.
19. 자기 혼자 할 줄 모르는 자는 야수에게 물리고, 뱀에게 물린다.
20. 혼자 할 줄 모르는 자는 실상 '정신 장애자, 행동 장애자'다.
21. <마음·정신·생각>이 살아 움직이는 자일수록 혼자서도 잘한다.
22. 혼자 할 줄 모르는 자는 '신앙의 뇌성마비에 걸린 자'다.
23. '남의 머리'로 움직이지 말고, <성자와 분체>를 '네 머리'로 삼고 '네 머리'로 움직이며 살아라. 이런 사람이 <영웅>이다.
24. 혼자서도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성자의 생각'대로 사는 자는 <영웅>이다. <성자 사랑의 대상체이며 자격자>다. <위대한 자>다.
25. 혼자서 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과 성자께 혼날 자>다.
26. 개인이 잘해라. 이 말은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잘하라는 뜻이다.
27. '혼자'와 '개인'은 다르다. <혼자>는 아무도 없을 때 '홀로'를 말하고, <개인>은 전체가 같이 있어도 '그중에서 자기'를 말한 것이다.
28. 축구 할 때 선수들 여럿이 있어도 '개인'이 잘해야 된다. 이것을 '개인지'라고 한다.

1. <실체>가 ‘말’다.
2. 성자는 말씀하실 때 ‘말’로 안 하시고, ‘실체’를 보이며 말할 것을 말씀하신다. 그 실체는 <만물>이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고 싶은 말을 ‘말’로 안 하시고 ‘말의 실체’인 <존재물>, 곧 <만물>을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하신다. 그 <만물>이 ‘말’같이 보인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
4. <만물의 실체>를 보이심은 사람이 ‘말’로 하는 것보다 ‘눈’으로 봐야 더욱 확실히 깨닫기 때문이다.
5. 가령 “너는 소같이 부지런하다.” 하면, 실제로 ‘소’를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하신다.
6. 가령 “너는 전문가 같다.” 하면, 실제로 ‘그 일의 전문가’를 보이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하신다.
7. <만물>은 수억만 가지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수억만 가지의 만물’을 보이시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다 하신다.
8.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그때마다 ‘합당한 만물’을 보이며 마음대로 다 말씀하신다. 그만큼 ‘만물의 가짓수’가 많기 때문이다.
9. <자기의 마음, 생각, 행위의 상태>와 <타인의 마음, 생각, 행위의 상태>까지 꿈에나 생시에나 ‘그에 해당되는 형상의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신다.
10. <낮>에 ‘생시’에는 보일 수 없는 것은 <밤>에 ‘꿈’으로 꾸며서 보여 깨닫게 하신다.
11. 지혜가 뛰어나고 영적 차원이 높으면, <낮>에도 ‘생각’으로 현상을 느끼게 함으로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니 ‘말하고 깨우쳐 주는 단어’가 ‘수조 가지’다. ‘하늘 언어’가 그리도 많은 것이다.
13. <하늘 언어>는 ‘수조 가지’다. ‘만물의 가짓수’대로 <하늘 언어>가 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한 지체’를 두고, ‘지구 세상의 만물의 가짓수’대로 다 비유하며 말씀하신다. ‘눈 하나’도 ‘수만 가지 만물’로 비유하며 말씀하신다. 또한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만물의 가짓수’대로 비유하며 말씀하신다. 또한 성경에는 ‘사람의 금단의 지체’를 ‘과일 하나’로 비유했지만, 하나님은 ‘수만 가지 만물’을 언어로 쓰며 비유로 말씀하신다. 어느 때는 ‘태양’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신다. ‘태양’이 생명을 존재케 하니, ‘태양’을 ‘금단의 열매’로 비유한 것이다.
14. 인간들이 서로 말하며 소통하는 단어는 7만 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는 <하늘 단어>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만물의 가짓수’만큼 많다.
1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늘 언어>로 말씀하신다. 고로 <하늘 언어>를 배워야 알아듣고 행하여 ‘화’도 면하고 ‘축복’도 받게 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실체 존재물>, 곧 <만물의 실상>을 보이면서 ‘무언’으로 말씀하며 깨우쳐 주신다.
17. 이 비밀을 알면 <미래의 것>도 알게 되고, <과거에 잊어버린 것들과 잃어버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현재의 것>도 알게 된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에나 ‘생시’에나 <만물>을 보이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하신다.
19. ‘생각과 두뇌의 차원이 높은 자’는 <만물>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 깨닫는 것이 많다.

20.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기 생각대로 못 박지 말아라.
21. 어떤 사람은 인간의 120~180의 아이큐로 수백억 조의 생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박아 생각한다. 사람이 '자기 생각 안'에 갇혀 행하니, 엄청난 손해를 본다.
22. '<예수님의 육신>이 구름 타고 와서 <인간의 육신>을 휴거시킨다.' 이렇게 못 박아 버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들이 거의 100%에 가깝다.
23. 모든 일을 '자기 생각 안'에서 못 박으면, 전능자의 행하심과 말씀에 어긋난다. '자기 생각'으로 못 박지 말아라.
24.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고 사랑해라." - 이런 말은 '생각과 행실'에 못 박아도 된다.
25. "하나님 안에서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지 말아라.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기다려라.
26. 어떤 사람은 '누구'를 따르면서 "그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고 자기 생각과 행실에 못 박고, 절대 그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며 살았다. 그러다 '자기가 메시아로 믿던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고로, '그 영'이 흑암 지옥으로 갔다. '그를 따르던 자들'도 같은 곳으로 간다.
27. 세상에서는 그가 메시아라 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 법에 어긋나서 그 행위대로 '그 영'이 지옥으로 간다. 사람들을 잘못 가르쳐 '많은 영혼들'을 사망 지옥으로 가게 했기 때문이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도 안 들어 보고, '자기 생각'으로 전능자를 못 박아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29.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영이 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지옥>에 간 영이 있다.
30. 인간이 지능이 낮으니, 지능이 낮은 대로 모르고 행한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구원하신다.
31.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장해야 제때 '할 일'이 닳치면 잘한다. 그러나 제때 못 크니, 제때 '할 일'이 닳치고 '큰 일'이 닳치면 <생각>이 어려서 제대로 모르고 행하다가 '죄'도 짓고 '화'도 당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생들'이 그러하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을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도우시고, 한없이 구원해 주신다.
32. 큰 자는 자기 혼자 화장실에 가고 더러우면 씻듯이, 크면 자기 죄가 더럽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회개하게 된다.

<2014년 8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에도 '생시'에도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고 계시하신다.
2. <꿈>에서는 '자기 혼체'가 활동하고, <생시>에는 '자기 육체'가 활동한다.
3. '마음과 생각의 복사판'은 <육>이다. <육>은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행한다는 것'이다.
4. '육의 복사판'은 <혼과 영>이다. '육의 행위'에 따라 '혼과 영'이 성장하고 변화된다는 것'이다.
5. <마음과 생각>이 완벽하면 <육>도 완벽하게 행한다.

6. <육>이 완벽하게 행하면 <혼과 영>도 완벽하게 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실제로 <혼과 영>도 점점 온전하게 변화된다.
7. 좋은 꿈을 꾸려면, 생시에 좋게 행하여라.
8. <꿈>이라고 예사로 여기지 말아라. 꿈을 꾸 후에 ‘화’도 피하고 ‘죽음’도 피하여 살게 된다. <꿈>으로 미리 보여 주기 때문이다.
9. <꿈>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꿈을 꾸 후에 ‘꿈에서 본 것’을 ‘생시’에 찾아서 수백억을 얻기도 했다.
10. 요셉은 <꿈>을 꾸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희망을 걸고 조건을 세우며 행하다가, 결국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었다.
11. 흔히 꿈을 꾸고 나서 “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꿈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게시의 꿈>이면, 생시에도 그같이 일어난다.
12. ‘육신’이 신령하게 기도하고 성자와 함께 영적으로 행하면, <꿈>에 ‘자기 혼’이 찾고 얻은 것을 <낮에 생시>에 ‘육신’이 찾아서 얻게 되고, <낮>에 ‘육신’이 ‘자기 혼’을 시켜서 만물 중의 귀한 것도 찾아서 얻게 된다.
13. <육신이 못 가는 우주 세계>도 신령한 자는 ‘그 혼’이 가서 보고 온 후에 ‘자기 육신’에게 이야기해 주어 안다.
14. <우주선으로도 못 가는 은하수 세계>도 ‘그 혼과 영’이 가서 본다. ‘육신’이 신령하면, ‘자기 혼’을 보내어 ‘혼’이 금방 보고 와서 ‘자기 육신’에게 이야기해 준다.
15. ‘혼’은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실체를 보고 와서 ‘자기 육’에게 이야기해 준다.
16. ‘혼’은 ‘마음이나 정신’이 아니다. ‘혼체’가 따로 있다.
17. ‘혼체’는 ‘마음과 정신’과도 일체 되어 수수 작용하며 존재하고 ‘육’과도 일체 되어 수수 작용하며 존재한다.
18. ‘자기 육체’는 보기 쉽다. ‘자기 혼체’는 <꿈>에서 보기 쉽다. ‘영체’는 ‘혼체 위의 신적 존재’라서 보기 어렵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 혼체, 영체’로 창조하셨다.
20. ‘혼체’는 영체보다 차원이 낮지만 ‘영적 존재’라서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어도 상관없이 통한다.
21. <자기 혼체>가 천 리나 떨어져 있어도 ‘육체’가 옆에 있듯이 가깝게 보인다.
22. <자기 혼체>를 부르면, ‘자기 마음’으로 대답한다.
23. <자기 영체>를 부르면, 역시 ‘자기 마음’으로 대답한다.
24. <성자>를 부르면, ‘자기 마음, 자기 생각’으로 느낌이 오고 대답이 온다.
25. <자기 수호천사>를 부르면, ‘자기 마음’으로 느낌이 오고 대답이 온다.
26. <천사>도 배워야 알고, 영적 차원이 높아야 느낌이 강하게 온다.
27. <영의 세계>는 ‘마음과 생각의 차원’이 높고 깊어야 잘 느껴지고, ‘자기 혼체’를 통해서 보기도 한다.

28. <이 세상의 것>도 ‘정신과 생각’을 흐릿하게 하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잘못 보고 잘못 듣는 것이 많다.
29. <신령한 세계의 것>도 ‘정신과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보고 듣지 않으면 틀리는 것이 많다.
30. 자기가 직접 알려고 하니, 실력상 틀리는 것이 많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자’를 통해서 하면 틀리지 않는다.
31. <계시>도 <알려 주는 것>도 ‘그 사람의 차원과 인식관’대로 깨닫게 하고 알려 주신다.
32. 육계도 영계도 연결되어 일체 돼 있어야 잘 통하고 잘 알게 된다.
33. <육계의 파장>도 상대와 자기가 서로 일체 되어 있어야 잘 통하듯, <영계의 파장>도 상대와 자기가 서로 일체 되어 있어야 잘 통한다.
34. 꿈이 흐릿한 것은 ‘영적 차원’이 낮기 때문이며, ‘육의 정신’이 흐릿하게 때문이다. 어느 때는 ‘영적 차원’이 높거나 ‘정신’이 강해도 슬쩍 꿈에 보여 주신다.
35. <육계>에서도 ‘시력’이 안 좋으면 흐릿하게 보인다. <영계>에서도 ‘마음과 정신의 눈’과 ‘혼체의 생각의 눈’이 안 좋으면 흐릿하게 보이고, 봐어도 생각이 잘 안 난다.
36. <육>과 <생각>을 일체 시키면 동시에 하나로 작동되고, 일체 시키지 않으면 각각 작동하고 활동한다.
37. 무엇을 보고 <생각>만 흥분할 때가 있고 <생각과 육>이 동시에 흥분할 때가 있다. 이는 <생각과 육>을 결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38. <혼>과 <육>도 일체 시키면 동시에 흥분하고, <혼>과 <육>이 쪼개져서 각각 놀면 한쪽만 작동되어 흥분한다.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하체’로 발달되느냐, ‘상체 뇌’로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갈 길>이 달라진다.
2. ‘하체’는 육적이고, ‘상체 뇌’는 영적이다.
3. ‘하체’를 차단하면 ‘상체 뇌’가 발달된다.
4. ‘상체 뇌’를 차단하면 ‘하체’만 발달된다.
5. 하루를 살아도 ‘하체’로 기울어져 사느냐, ‘상체 뇌’를 발달시키며 사느냐에 따라 <갈 길>이 달라진다.
6. 너의 생활은 ‘하체 중심’이냐 ‘상체 뇌 중심’이냐.
7. <하체 쪽>을 생각하면 ‘순간’에서 ‘하루’까지, ‘한 달, 1년’까지, 혹은 ‘평생’까지 <하체>가 발달되어 <하체>로 살아간다.
8. <상체 뇌>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살면 ‘순간’에서 ‘평생’까지 <상체>가 발달되어 <상체>로 살아가게 된다.
9. 인간은 매일 매시간 ‘둘 중의 한 가지 편’으로 생각과 생활이 돌아간다. ‘하체 쪽’, 혹은 ‘상체 쪽’ 둘 중의 하나다. 돌아가는 대로 발달되고, 돌아가는 대로 살게 된다.

10. <상체>는 형이상학적이며, 하나님께 속한 영적 삶이다.

11. <하체>는 형이하학적이며, 육체에 속한 이성과 물질과 욕망의 삶이다.

12. 인간은 자기가 생활하는 대로 육도 영도 운명이 결정된다.

13. 과일은 <과수원>에서 그동안 큰 대로 ‘상, 중, 하’로 결정되어 각 박스에 담긴다. 나무도 <산>에서 ‘떨감용, 집이나 건물을 짓는 자재용’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이 인간도 <지구>에서 매일 살아갈 때 ‘영의 운명’이 ‘천국, 낙원, 선영계,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결정되어 영이 그 세계로 찾아가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여 인간이 살게 하시고, 구원자를 지구 세상에 보내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운전해야 된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육과 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힘들어도 제대로 산 자는 휴거되어 천국에 가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 자는 음부, 지옥으로 가서 기한 없이 영원히 살게 된다.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활 속에서 해야 될 ‘작은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큰일’도 못 한다.

2. ‘작은 일’을 충성으로 행하지 않으면, ‘큰일’도 깨지게 된다.

3. ‘생활’이 나태하면, 아무리 공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에 힘이 없다. 그러다 쓰러진다.

4. ‘생활’이 안 되면, 큰 사명자들도 넘어진다.

5.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휴거’에도 문제가 있다.

6. ‘생활 점수’가 곧 ‘휴거 점수’다.

7. <글씨 한 자>를 쓰더라도 ‘한 점, 한 획’까지 잘 써야 좋은 글씨가 된다.

8. <글>을 쓸 때도 ‘한 단어, 한 문장’까지 모두 잘 써야 ‘문맥 전체’를 잘 쓰게 된다.

9. <말>을 할 때도 ‘한 단어, 한 구절’까지 잘해야 ‘그 이야기 전체’를 잘한 것이다.

10. ‘생활 속의 의로운 작은 행위 하나하나’는 ‘글 한 자’와 같고, ‘한 단어’와 같고, ‘한 문장’과 같다.

11.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 인생>을 생각해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잘해야 된다.

12. ‘생활 속’에서 막하는 자는 그 행실로는 ‘큰일’을 못 한다.

13.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 보신다. 거짓 없이, 행한 대로 ‘사명’을 맡기신다.

14. ‘생활’에서 <휴거>가 좌우된다.

15. ‘생활 속’에서 말씀을 행하고, ‘생활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생활 속’에서 회개하고, ‘생활 속’에서 점점 변화되고 성장하면서 <신부의 형체>를 갖추는 것이다.

16. 24시간 자기 생활이 중요하다. ‘생활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

17. '생활 속'에서 성자를 부르고 찾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18. '생활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다.
19. '생활'이 잡히지 않은 사람이 자신감이 없고, 포기를 잘하고, 힘들다고 한다.
20. '생활'은 <자기>가 하는 것이다. <남>이 해 줄 수 없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다.
21. 사탄, 마귀, 인사탄, 악평자 모두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된다. '생활 속'에서 유혹과 꾀와 악평을 이기지 못하면, 쓰러진다.
22. '생활 속 영웅'이 되어서 사탄, 마귀, 인사탄, 악평자를 물리쳐라.
23. '평소'에 잘해라. '생활 속'에서 잘해라.
24. 사람은 '생활 속'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25. 아무리 지도자라도 '생활 속'에서 봐야 된다.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실'이 어떠한지 보면, 그 사람이 다 보인다.
26. '생활'을 봐야 <휴거 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27. '생활 속의 휴거'다.
28. '생활 속의 말 한 마디, 한 마디', '생활 속의 행실 하나하나'로 <휴거>가 좌우된다.
29.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생활 속'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30. '생활 속'에서 <휴거>를 이루어라.
31. '생활 속'에서 안 하면, 변화되지 않는다.
32. 먼저 '생활 속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부터 고쳐라.
33. 생활 속속들이, 뻗속들이 <신부>로 만들어라.
34. '생활 속'에서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35. 생활 속에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표적이며 기적이다.
36.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37. '작은 변화'가 '영원한 변화'를 낳는다.
38. '생활 속 영웅'이 되어라.
39. 생활 속에서 <행할 것>을 행하고, <만들 것>을 만들고, <꿈을 것>을 꿈으며 '개인 영웅'이 되어라.
40. '생활 점수'가 <휴거>를 좌우한다.

41. '생활이 된 사람'이 진짜 변화된 사람이다.
42. 보이냐, 보이지 않으나 잘하는 자가 '생활 속의 영웅'이다.
43. '생활'을 변화시켜라. '삶'을 변화시켜라.
44. 생활 속에서 '성자'를 빼놓지 말고 살아라.
45. '평소 신앙, 생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신앙이 무너진다.
46. '신부의 생활과 삶'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떠난다.
47. '생활 속'에서 늘 부르고 찾고 사랑하며 같이 살다가 휴거되는 것이다.
48. 지금은 '자기 변화'가 시급한 때다. <휴거>는 딱 한 번뿐이다.
49. '생활 속의 변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50. '개인 생활 점수'가 낮아서 <휴거율>이 낮은 것이다.
51. '개인 생활 점수'는 <휴거>를 좌우한다.
52. <휴거>에 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생활 점수'를 올려라.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새벽잠언>

1. <동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아예 한 발자국도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동쪽 한계선'까지 가게 된다.
2. 가령 100보를 주면서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해라." 했다 하자. 100보를 가지고 '한쪽'만 위해서 가야 '그쪽 목적지'에 가게 된다.
3. 그런데 <동쪽>으로 쪽 가다가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가면, '동쪽 목적지'까지 못 가고, 몇 보 남겨 놓고 서 있게 된다. 고로 100% 하라는 것이다.
4. 아예 1%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5. 금식할 때는 정한 기간 안에 한 끼라도 먹으면 '금식'이 아니다. '절식'이다. 절식할 때 정한 때 외에 먹으면 '절식'이 아니라 '소식'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완전하시니, 완전하게 행하는 자만 완전하게 <구원>도 받고, 완전하게 <휴거>도 된다.
7. 성공하려면, 완전하게 행해라.
8. 기회를 잡는 데도 '완전한 시간'이 있다. 그 시간에 행하는 자만 그 시간에 기회를 잡아 성공한다.
9. '자기를 만드는 자'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다.
10. <휴거>는 '변화'이며,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드는 것'이다.

11. 자기를 계속 만드는 자는 휴거된다.
12. 만들기다. 변화시키기다. 행하기다. 그러면 얻게 된다.
13. <목적>을 두고 행해라. 그러면 100% 얻는다.
14. 행하는 만큼 얻는다. 행하는 만큼 잘된다.
15. 얻지 못한다고 탄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행해라! 그러면 즉시 얻는다.
16. 행할 때 장애물이 있으면, 먼저 '마음·정신·생각'으로 행해라. 그다음에 '욕'으로 행해라. 그러면 장애물이 처리된다.
17. 생활 속에서 개인이 잘하게 하려면,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18. 생활 속에서 개인이 못 하는 이유는 아직 '만들 것'을 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19. 저마다 '자기가 안 만들어진 부분'이 무엇인지 안다. 결심하고 하여라. 하면 100% 다 할 수 있다. 목숨 걸고 안 해서 못 하는 것이다.
20. '차'도 만들고 타야 도로를 달려서 천 리 길도 하루 만에 오고 간다. '차'를 안 만들고 걸어가서는 갈 수가 없다.
21.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욕신으로 행하며 자기를 만들어라. 자기를 만들기 전에는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날지 못한다.
22.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즉시 일어나라. 생시에도 할 일을 그때 즉시 해라. 그때가 최고의 기회다.
23. 이제는 모두 '자기'를 꺾고 이겨야 된다.
24. 휴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 말해 주었다. 휴거되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행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이다.
25.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생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 합당한 것'은 다 주셨다. 그런데도 얻지 못하는 원인은 자기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6. <희망>은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행할 때 희망이 이루어진다.
27. <타인을 통해 이루는 희망>은 이뤘어도 크지 않다. 자기가 할 일을 하여 <희망>을 이뤄야 크게 쓰게 된다.
28. 자기 할 일을 못 하면, 희망이 없다. 고로 사는 기쁨이 사라진다.
29. 왜 자기 할 일을 못 하면서 희망이 없다 하고, 사는 기쁨이 없다 하느냐. 어서 자기 할 일을 해라. '생활'을 잡아라.
30. 생활 속에서 <시대 말씀>을 행해라. 그것이 매일 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로 인해 각종 축복이 온다.
31. 오늘 못 했으면, 오늘 것은 끝났다. 내일 다시 해라. 하는 날만 된 것이다.
32. 새벽 시간에 못 했으면, 새벽은 끝났다. 낮의 것을 뺏기지 않도록 낮에는 꼭 행해라.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루려면, 자기 기질과 특기와 마음과 정신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행해야 된다.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34.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주인은 '자기'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할 주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는 인간이 천국에 가도록 책임을 다 해 주고 도와주신다. 그러나 '믿는 것, 배우는 것, 행하는 것,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35.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주인은 '자기'다.

36. 자기 행위로 천국, 혹은 지옥에 가게 된다.

37. 현재 '자기 욕'이 행하는 대로 '자기 영'이 천국 쪽이나 지옥 쪽, 양단의 한 길로 가게 된다.

38. '자기 욕신'이 하나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망 주관권에 살면, '그 영'도 똑같이 사망 주관권에서 살고 있다.

39. 사람은 행하는 대로 얻는다.

40. 매일 극적으로 행할 것을 행하여 얻고 살아라.

41. 행하지 않을 때는 갈수록 '산'이다. '강'이다. '절벽'이다.

42. 행할 때는 갈수록 '평지'다. '샘'이다. '이상세계'다.

43. 인생은 '자기 행위의 결과'에 처해 살아간다.

44. <육계>에서도 욕이 행한 대로 '욕'이 그 주관권에서 살고, <영계>에서도 욕이 행한 대로 '혼과 영'이 그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45. '자기 욕의 행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겪게 되고, 당하게 된다.

46. 이 시대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주시는 이 시대 말씀>으로 사는 것 외에는 '인간으로서 더 큰 삶'이 없다.

47. 자기 생각, 자기 구상을 이루어서 자기만족 속에 살아도 변화무쌍하다. 그렇게 해서는 영혼이 생명권 속에서 편히 살지 못한다.

48. 욕도 혼도 영도 이상적으로 살게 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살아라. 그가 보내신 구원자의 말대로 살아라.

49. '자기 혼'이 사는 혼계의 배경을 보아라. 어떤 환경인지 보아라. 늘 '자기 욕'이 행한 대로 '자기 혼이 처한 환경'을 보게 되고 겪게 된다.

50.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시간'에 따라서 '배경'이 달라진다. <배경>은 '차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인생이 행하는 대로 육계와 영계의 '배경'이 다르게 보이고, '얻는 것'도 다르다.

51. 새벽에도 1시, 2시, 3시, 4시, '시간'에 따라서 '혼이 처한 배경'이 각각 다르다. '시간의 차원'대로 '배경'이 보인다. 그로 인해 '욕이 받는 것'도 다르다.

52. 현재 모든 인생들이 사는 배경은 ‘자기 육이 행한 대가’이며 ‘자기 육이 행한 결과물’이다.

53. 사람은 ‘자기 뇌 차원’대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54. 어떤 사람은 ‘타락 문화’를 천국같이 생각하며 그리도 좋아하며 산다. 어떤 사람은 ‘소설, TV, 이성, 세상 음악’에 빠져서 그것을 그리도 좋아하며 중독되어 살아간다. 그때 육도 혼도 영도 그 세계의 형체로 변하여 살고 있다.

55. 하늘에 속한 자는 1초라도 ‘타락 문화, 세상 문화’에 처하는 것을 싫어한다. 마치 지옥과 같이 느끼고, 전갈이 쏘는 것같이 고통스러워서 못 한다. 이는 육도 혼도 영도 ‘하늘 형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56. 세상 것은 보고 행해 봐야 ‘영’에게 남는 것이 없다.

57. 미련한 자는 ‘육’ 가지고 ‘영’을 만들어서 <천국>에 가지 않고, ‘사망의 삶’을 살다가 영원히 <지옥 고통> 속에 살게 한다.

58.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의 형체’를 만드는 대로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물샐틈없이 해라.

2. <모든 일>을 물이 새 나가지 않게 하듯 해라. ‘틈’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그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간다.

3. <사람>도, <시간>도 ‘물’로 보고 새 나가지 않게 해라.

4. 물은 ‘틈’이 있으면, 결국 다 새 나간다.

5. <시간>도 ‘틈’이 있으면 1분, 2분씩 새 나가다가 하루 종일 엄청난 시간이 새 나가게 된다.

6. 1시간이 있어도 ‘1초씩’ 새 나가면, 결국 다 새 나간다.

7. 생명을 관리할 때도 이를 알고 관리해라. 생명이 ‘조금씩’만 세상으로 새 나가도 결국 아예 세상으로 가 버린다.

8.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 놓고서 보아라. ‘틈’이 있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결국 물이 다 빠져나가 한 방울도 남아 있지 않다. 사람도, 시간도, 그 어떤 일도 ‘틈’이 있으면 결국 다 빠져나가니, ‘틈’을 100% 막아라.

9. 사탄도 ‘큰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니 ‘틈 시간’을 타고 들어온다. 고로 ‘틈’을 없애기다.

10. 물건도 헌것이 되면 ‘틈’이 생긴다. 보수하기다.

11. ‘틈’을 소홀히 보고 생각하지 말아라.

12. 도둑들도 ‘틈’을 노린다.

13. 모르는 것이 ‘틈’이다. 고로 사탄은 진리를 정확히 모를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 결국 모든 생각을 다 잡아먹고 사망으로 이끈다.

14. 태만한 것이 ‘틈’이다.

15.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틈’이다.

16. 뇌의 차원이 낮은 것이 ‘틈’이다.

1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틈’이다.

18. 게으른 것이 ‘틈’이다.

19.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틈’이다.

20. 건강도 살피지 않는 쪽이 ‘틈’이 되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몸을 병들게 한다.

21. 사탄도 악한 자들도 ‘틈’을 노린다.

22. 꿈에 보니, 사탄이 숲속에서 지나가는 자들을 지키며 ‘틈’을 보고 있었다.

23. 영계에서는 사탄이 보였는데, 육계에서는 안 보였다.

24. 영의 것들은 ‘영과 혼’으로 보고, 육의 것들은 ‘육’으로 보아라.

25. <육적인 것의 실상>은 ‘영’으로 보아라. 정밀하게 보게 된다.

26.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27. 계산을 잘못하고 행하면, 자기가 자기를 고생시킨다.

28. 성자와 함께 행하면, 혹시 고생된다 하더라도 후에는 <축복>이며 <행복의 길>이다.

2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다 주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여 축복하시며 ‘자유의지’를 주어 살게 하셨다. 그 위에 <인간에게는 극적인 최고의 축복>을 주셨으니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 극치의 기쁨이며 낙’이다. 그것도 ‘신과의 사랑’을 허락하셨다. ‘신과의 사랑’은 ‘인간과의 사랑’보다 억만 배나 더 크다.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산 결과로 하나님은 인간이 지구에서 원하는 것을 다 해 주시고, 그 영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어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랑하며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하셨다.

30. 한 남자가 최고로 멋진 ‘정원’을 만들고, ‘집’도 천국같이 만들어 놓고 한 여자에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라.” 했다.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더 해 줄 것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해라. 사랑을 허락한다.” 했다. 여자는 백마 탄 왕자님 같은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남자에게 자기 사랑을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준 남자가 사랑을 허락하니, 좋아서 기절했다. 여자가 깨어나서 “정말이에요?” 하니, 남자는 “그것 때문에 이 정원과 집을 천국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다 쏟아서 너에게 주면서 같이 살 거야.” 했다. 이 말을 듣고 여자는 너무 좋아서 다시 기절했다. 이번에는 3일이 지날 때까지 못 일어났다. 남자는 이를 보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기뻐하며 같이 살았다. 그러나 남자가 보니, 여자의 사랑의 차원이 낮았다. 그래서 늘 가르쳐 주면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랑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결국 여자는 남자의 합당한 상대가 되었고, 남자는 여자에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쏟아 주며 축복해 주었다. 여자가 자기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랑과 축복을 다 감당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우주 만물>과 <지구>를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다. 그 목적이 이와 같이 이러하다.

<2014년 8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일’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2. 인간은 ‘뇌’에서 생각나지 않으면, 정말 모르고 산다.
3. <뇌>가 살아야 <생각>이 살고 <몸>이 행한다.
4.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짐승 머리가 된다.
5. <뇌>는 생각하는 대로 체질이 되고, 굳어지고, 풀린다.
6. 손에서 놓으면 잃어버린다. 생각에서 잊으면 잊어버린다.
7.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살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서 허송세월하게 된다.
8. 하나님은 해 줄 것을 다 해 주시고, 인간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그때 심판하신다.
9.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다. 인간이 하나님이 법을 어기고 스스로 사망길로 가는 것이 심판이다. 또한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고로 스스로 불의를 행하다가 사망으로 간다.
10. 인생은 ‘생활’ 속에서 ‘삶’속에서 자기가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11. 자기가 기뻐하지 않으면 남이 기쁨을 줘도 기쁘지 않은 것이다.
12. 자기가 기뻐야 남이 기쁨을 줘도 기쁜 것이다.
13. 자기 뇌세포가 살아 있어야 자기 기쁨이 충만하다.
14. 타인에게만 희망을 걸고 기쁨을 기다리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를 연구하고 노력하고 행하면서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열을 내어 살아라.
15. 자기 속에 엔도르핀이 있기에 기쁨이 오는 것이다.
16.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구출의 기쁨’을 얻는다.
17. 기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같이 먹고 즐기는 기쁨’을 얻게 된다.
18. 하늘나라의 것을 상상해 보아라. 그러면 맞는 것이 많다. 천국에는 다양한 것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천국에는 좋은 것은 다 있으니, 상상하는 대로 그것과 맞는 것이 많다.
19.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은 모두 같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20.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다.
21. 똑같은 만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다. 그에 따라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쓰여진다.
22.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23. 능력자는 천한 것도 귀히 쓰지만, 무지자는 귀한 것도 천히 쓴다.
24. '만드는 희망과 기쁨'도 크지만, '만든 것을 쓰고 누리는 희망과 기쁨'이 더 크다.
25. <인간>은 만들면 '천인'이 되지만, 안 만들면 '괴물'이 되고 '지옥의 영'까지 된다.
26. (성자) 너와 나는 한 몸이니, '너'를 통해 역사한다. '네 마음'을 통해 역사하여 생각하게 하고, '네 육'을 통해 역사하여 행하게 한다.
27. (성자) 없으면 나와 같이 만들면 되는데, 왜 없다고 하면서 그만두느냐.
28. (성자) '네 육'을 가지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네 영'을 <천국의 형체>로 만들어라. 충분히 할 수 있다.
29. 세상의 육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처음에는 '돌감나무'와 같다. '참감나무'와 접붙이는 나무만 '참감나무'가 된다. 이와 같이 구원자와 일체 되어 생명의 접붙임을 받지 않고서는 영이 <하늘나라에 속한 형체>로 변화되지 못하여 '천국의 영'이 될 수 없다.
30. '틈이 있는 사랑'은 '떨어진 사랑'이다.
31. '거리가 있는 사랑'은 '일체 되지 않은 사랑'이다.
32. '거리가 있는 사랑'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사랑'이다.
33. '틈'을 없애기다. '거리'를 좁히기다.
34. <구약>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거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35. <신약>은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거리'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했다.
36. <성약 재림 때>부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실존체'로 보고, 거리 없이 사랑하며 사는 자만 완전히 회복된 자다.
37. 천국은 '뇌, 마음, 정신, 영체 사랑'이다. 고로 일체 된 사랑을 해야 된다.
38. '거리 없는 사랑'이라야 '회복된 사랑'이다.
39.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거리 없는 사랑'이다. <성약 재림 때>부터는 삼위일체와 절대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40. <성약 재림 때>부터는 주종 시대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시대도 아니다. 신부 시대다. 거리가 없고 차원이 같은 사랑의 시대다.
41. 사랑해야 잔치할 수 있다.
42. 말, 글, 생각, 마음이 '총'이다.
43. 내게 줬어도 그것은 하나님과 성자가 주셨으니, 하나님과 성자의 것이다.
44. 사랑해야 <희망과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다.

45. 부지런해야 <얻는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된다.

46. ‘성자’를 맞아야 <영원한 사랑의 잔치>를 하게 된다.

47. ‘주’를 맞아야 <천 년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2014년 9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는 <하늘 언어>는 ‘세계 공통어’라서 배우면, 누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할 수 있다.

2.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글과 말’로 사용하신다. 때에 따라 <만물>을 보여 주시며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하신다.

3. <태양> 하면, 각 나라별로 ‘언어와 발음’이 다르다. 고로 각 나라 언어를 다 배워야 알아듣는다. 그러나 <하늘 언어>는 ‘세계 공통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70억 명에게 <태양>을 보여 주시면,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저것은 태양이다.” 하고, 알고 통한다.

4.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천둥번개를 치게 하여 보이면서 “회개하여라.” 하시면, ‘한 마디’로 세계 70억 명에게 다 전달된다.

5. 똑같은 천둥번개를 보여도 ‘자기 행위’대로 각각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

6. 성자가 밤에 <별들>을 보이며 “별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여 빛내라.” 깨우쳐 주시면,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7. <만물>은 그 모양과 뜻과 개성이 확실하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에 따라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합당한 만물의 모양과 형태’를 보이시며 “네가 그러하다.”, 혹은 “저 사람이 그러하다.” 깨우쳐 주신다.

8. 사람은 <말>로 뜻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시니, <말>과는 비교가 안 되게 차원 높게 깨닫고, 실감 나게 느낀다.

9.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지옥 같은 것’을 직접 느끼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 받는 자들’을 보게 하시면서 무언으로 말씀하신다.

10.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언어>로 실물을 직접 보이며 무언으로 말씀하신다.

11. 하나님은 <말의 실상>으로 말씀하신다. ‘불같은 말씀’ 하면, ‘불’을 보이며 말씀하신다. 고로 <말씀>을 ‘불’로 표현하신다.

12. <산>을 말씀하실 때는 ‘산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신다.

13. <썩은 마음, 썩은 인생>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폭폭 썩어 냄새 나는 과일’이나 ‘쓰레기’나 ‘냄새 나는 하수도’나 ‘썩은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4. 7월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저렇게 클 때까지 한 번도 안 보이더니, 신기하네.” 했다. 성자가 어떤 뜻을 두고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는지 깨달으려 하니 “다 커서 나와야 거미나 해충이 잡아먹지 않지 않냐.” 하셨다. 예전에 ‘크지 않고 나온 귀뚜라미’는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에게 잡혀 먹혔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귀뚜라미>는 ‘가을의 곤충’인데, 어떻게 여름인 7월에 벌써 나타

났냐?” 했더니, “올해는 일찍 가을이 와서 일찍 시원해진다.” 했다. 성자께서 <만물의 글>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입추’가 빨라서 곧 시원해졌다. 하나님은 <만물 한 가지>를 보이면서,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15.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답답하다고 하셨다.

16. 보여 줘도 깨닫게 해 줘도 ‘마음’이 둔하여 자기 앞에 <축복>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보고,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본다.

17. 한 번은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뭐가 썩었나? 썩을 것이 없는데... 며칠 전에도 청소했는데...’ 하고, 다시 살살이 뒤지며 청소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먹다가 하나 남은 과일’이 비닐봉지에 싸여 있었고,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썩어 있었다. 너무 냄새가 나서 바로 버렸다. ‘어떤 과일이 썩었지? 천도복숭아인가? 토마토인가?’ 궁금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 전에 먹다가 하나 남긴 천도복숭아’가 확실했다. 이것을 보고 ‘섭리사에서 영적으로 신앙이 썩고, 육의 행실이 썩은 사람을 보여 주시나?’ 생각했다. 이 날 오후에 누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떤 사람이 오래 전부터 이성으로 타락하며 살았고, 섭리를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 날 뉴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수배자’가 죽었는데, 정말 그가 맞는지 부검을 해 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부검 결과, ‘찾는 사람의 시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됐다.

18. <병든 소나무>를 보고서 ‘소나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은 ‘지식’에 해당된다. <사람>과 연관시켜서 깨달으면 ‘하늘 언어’를 알아들은 것이다.

19. <만물>만 배우면 ‘만물에 해당되는 지식’만 배운 것이다. <만물>을 보고서 ‘자기’와 연관 지어 깨닫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연관 지어 깨달아야 그것이 <신앙>이고, <하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다.

20. <하늘 언어>를 배운 사람은 ‘만물’과 ‘자기 자신’과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연관 지어 생각한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된다.

21. <하늘 언어의 기본>을 배웠으니, 이제 외국어를 배우듯이 <만물의 특성과 모양과 형태>를 배워야 된다.

22.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고로 ‘하나의 만물’을 보이며 ‘한 마디’ 하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수천, 수만 가지로 깨닫게 하신다.

23. 지구 세상 70억 명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각종으로 물었다 하자. 하나님은 ‘한 가지 만물’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24.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언어’가 안 통하면, 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같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언어’가 안 통하면,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25. <하늘 언어>를 배우면 ‘휴거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알아들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행하시는 ‘휴거’를 빨리 이룰 수 있다.

26.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많은 말씀을 하며 깨우쳐 주신다. 이 시대에 전할 말씀은 <만물>을 통한 말씀이 많다.

27.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말씀, 핵적인 말씀>은 ‘시대 구원자’를 통해 밝히신다.

<2014년 9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한 가지의 뜻>을 두고 잘 이해하고 행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2. 잠을 깨라고 ‘여러 가지’를 보이며 계시하신다.
3. 성자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4. 행할 일을 두고 깨닫고 행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5. <사람>을 두고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만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듯, <한 가지 행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보이며 계시하신다.
6.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십 가지’로 말하듯이, <행할 일>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보이며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신다.
7. <행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신다.
8. <성경의 비유>만 배우고 끝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행하며 살아라.
9.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다.
10.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11. <생각>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인다.
12.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을 하기도 한다.
13. 무엇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한다.
14. <몸>은 움직이고 행해야 일하지만, <생각>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하고 행한다.
15. 가령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서 잊었는데 다시 생각해 내려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가지고서도 알아낼 수 있다. 고로 ‘생각하는 것’도 일이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려면 절대 <생각>이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몸>도 따라가서 ‘육으로 해야 될’은 ‘육’이 해야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8. 생활 중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한 자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 것이다. 이것도 공적이 되어 육도 영도 ‘대가’를 얻는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생각으로 할 일’은 <생각>으로 하고 끝내신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행동>까지 실제로 사랑한 것이다.
21. 하나님이 <생각>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시면, 실제로 축복을 받는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간과 대화하신다.

23. <마음과 생각>은 ‘뇌’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만물>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말씀하신다.

24. 마음의 대화, 생각의 대화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 고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여라.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충분히 깨닫도록 말씀하신다. 가령 새벽에 일어날 때가 되면 ‘깨우는 것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보이며 충분히 깨닫게 하신다. 혼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릴 곳에서 내리는 모습을 ‘비유’로 보여 주며 잠을 깨우신다. 어느 때는 갈림길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뱀이 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비가 쏟아져서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도둑이 자기 집으로 살살 기어들어오는 것을 보이며 깨우신다. 어느 때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신다. 이는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6.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답’을 줘도 모른다.

27. ‘답’을 ‘비유’로 보여 주셔도 풀어서 깨달아야 된다.

28. 사람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울 때는 더위를 느끼니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더운 만큼 무기력해진다. 추워도 그러하다. <육>이 영향을 받으면 <뇌>도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생각>도 영향을 받고 <혼과 영>까지 영향을 받는다.

29. ‘환경’은 피할 수 있다. 피해서 해라.

30. 사람은 ‘기후의 영향’을 받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31. 열대지방과 한대지방의 식물과 동물들을 보아라. ‘기후’에 따라 존재하는 방식과 모습이 좌우된다.

32. 이와 같이 사람의 <육신>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33. 생각하는 대로 <육신>은 80%에서 100%까지 영향을 받는다.

34. 이와 같이 행동하는 대로 <마음과 생각>도 영향을 받게 된다.

35.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시면서도 ‘여러 가지의 뜻’을 두고 주신다. 그 ‘한 가지’를 통해 ‘각종 뜻’을 이루려 함이다.

36. 하나님은 <예언>도 이루시고, <전설>도 이루시고, <약속한 것>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니 ‘증표’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조건이 있으니 ‘징조’로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쓰기 위해서 주신다.

<2014년 9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네가 기도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만물>로 보여 주며 말했다. 그러니 ‘네가 기도한 것’과 연관 지어 <만물>을 보고 ‘내 말’을 깨달아라.

2. ‘기도한 내용’은 <문제>라면, ‘만물로 보인 것’은 <답>이다.

3. 기도해 놓고 잊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물>이나 <마음>으로 말하실 때 쉽게 알아듣는다.

4. 자기가 기도하고 물어 놓고 그것을 잊으면, 성자가 <만물>을 보여 주며 말해 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며 말해 줘도 ‘그것에 대한 답’인지 모른다.
5. <문제>를 머리에 넣고 다녀야 때가 되어 성자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말해 주면 바로 말귀를 알아듣게 된다.
6. 기도해 놓고 잊지 않으려면,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수시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해 놓고 계속 보면서 뇌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답’을 주면 바로 깨닫는다.
7. <답>을 물어도 ‘어떻게 대답해 줄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가 물어본 것>을 잊어버리면, 답을 말해 줘도 모른다. 대부분 <자기가 기도하고 물어본 내용>을 잊어버리기에 말해 줘도 모르고, 응답해 줘도 모르고, 때가 되어 주려고 해도 눈치를 못 채서 못 주고, 성자가 줬는데 받았는지도 모른다.
8. 어떤 것은 기도하고 바로 응답해 주고 대답해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가 구하고 물어본 것>을 잊어버리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나.
9. (성자) ‘네가 기도하고, 묻고, 원하고, 구한 것’을 잊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야 내가 ‘답’을 줘도 네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받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한다.
10. 동물도 수십 리, 수백 리에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데, 천국에 간다는 자들이 기도하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제 갈 길만 가니 동물만도 못 하다.
11. ‘월명동의 소나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소나무에 벌레가 먹지 않도록 송충이들을 모두 멸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한번은 월명동에 ‘희귀종 새들’이 많이 날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성자에게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도하니, 성자는 “새들이 날아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송충이들이 소나무를 먹으니, 네가 없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서 없어졌다. 그러니 새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날아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새들’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먹이’도 관리해야 되듯이, ‘사람’만 관리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만물’도 관리해야 된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12. 월명동에 새들이 날아오게 하려면, 새들이 먹을 벌레가 많아야 된다. 그러나 송충이들이 많으면 소나무를 뜯어 먹고, 그러면 소나무 속에서 산책도 못 하게 된다. 새들도 날아오게 하고, 소나무도 잘 존재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결국 벌레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13. 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희귀종 새들’이 많다. 그 대신 밀림 속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산다.
14. 사람도 시장이나 음식점에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든다. 이와 같이 새들도, 다른 동물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든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신령한 하늘 양식’이 있어야 생명들이 몰려든다.
15. 하루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큰 귀뚜라미 한 마리’와 ‘새끼 귀뚜라미 두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순간 사라졌다. 그것을 통해 성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빨리 못 알아들어서 기도했다. 알고 보니 ‘내가 성자에게 물은 것에 대한 답’이었다. 그래서 즉시 “새끼를 낳으니 밥을 줘야 되겠다.” 하며, <말씀>을 써서 보내 주었다.
16. 선생이 옛날에 낙성대 근방 봉천동에 살았을 때다. 다른 집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가서 지저귀는데, 우리 집에는 몇 마리밖에 안 왔다. 그래서 마당에 ‘모이’를 뿌려 놔더니, 몇 마리씩 오던 새들이 20~30마리씩 와서 ‘모이’를 먹고 노래했다. 그때부터 다른 집은 정원이 크고 나무가 많아서 숲을 이뤘어도 안 가고, 내 마당에만 모여들었다. 창문을 열어 놓으니, 새들이 방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모이’를 새 입에다 잔뜩 넣어 주고 물도 주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방안에 난로를 피워 따뜻하게 해 주었다. 그랬더니 새가 좋아서 방안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먹이’가 있으니 쥐들도 모여들었다. 그래서 “쥐 너는 안 된다.” 하며 밤새워 쥐를 잡았다. 낮에 마당에 숨어 있는 쥐까지 다 잡았다.
17. 새를 기르려면 ‘먹이’가 필요하듯, 생명을 기르려면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러면 사탄과 인사탄들이 와서 방해하지

만, 기도하여 해결하면 된다.

18. 새들이나 동물이나 가까이 보려면 ‘먹을 것’을 주고 ‘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19. ‘환경’과 ‘먹을 것’을 갖춰야 <천국>이다.

20. 월명동도 ‘육적 환경’과 ‘영적 말씀’을 갖춰서 하나 되었기에 <천국>이다.

21. 선생이 편지로 “월명동에 새들이 많이 지저귀나?” 물으니, 별로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다려라.” 하고, <자연성전>에 노래 잘하는 새를 사 놓았다. 그리고 ‘산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하는 새’는 성자께 간구하여 <자연성전>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월명동에는 ‘먹을 벌레’가 없으니, 다른 산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쉴 때라도 월명동에 와서 노래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성자는 “그렇게 하자.” 하셨다. 그 후 다시 편지하여 “새들이 어디에서 노래하는지 봐라. 새벽에 날 쉴 때부터 다녀보아라.” 했다. 며칠 뒤에 소식이 오기를, <고래바위> 지역에서 ‘희귀종 새들’이 노래한다고 했다.

22. 월명동에 새들이 오기만을 원하지 말고 오게 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연성전>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주인같이 하는 자들에게만 보람 있게 쓰도록 하신다. 나무도, 돌도, 물도, 잔디도, 새들도, 동물들도 사랑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100배, 1000배 더 보람을 누리고, 성자께도 그같이 사랑받게 된다.

23. <말>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2014년 9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또 행할 자는 자신이니, 자기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정신을 잡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 자가 성공한다.

2. 육신만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육도 영도 다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다.

3. 육적인 문화와 세상의 삶만 연구하며 살지만, 그것은 육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더욱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하여 고통이다.

4.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구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5. 과학으로 <뇌>를 연구하면,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를 알 수가 없다. ‘영원한 뜻’을 두고 창조했는데, 과학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알겠느냐.

6. 하나님은 오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의 때’가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7. <뇌의 근본>은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에게 가르쳐서 그가 시대를 잡고 나가게 하시며, 최고로 차원 높은 천국에 가게 하는 ‘휴거 역사’를 이루신다.

8. 하나님은 단계별로 역사해 오셨다. <구약>은 ‘육적 차원’으로 발달시키며 이끌어 오셨고, <신약>은 ‘혼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오셨다. <성약>은 ‘최고 차원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끄시며 ‘혼과 영’에 대해 가르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9.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가 최고 절정기다.

10. 육과 혼과 영을 모두 완성시켜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룬다. 고로 마지막 섭리역사에서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꼭 육과 혼과 영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휴거'시키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지막 섭리역사 때는 당세에 정녕 <뜻>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그로 인해 성약역사 1000년 동안 후대에서 찬란하게 역사를 펴 나가게 하신다.

1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시대 보낸 자를 온전히 안 자'를 쓰시며 <시대의 뜻>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13. 하나님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시대의 핵심적인 것>은 항상 '시대 구원자'를 쓰고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14. 기도를 깊이 하면, 자체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때 성자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혼과 영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 단계에서 더 기도하면, 오는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단계로 간다.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성자를 부르며 대화해 보아라.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서 대화해라. 그러면 대화가 된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15.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핵심으로 <뇌>를 창조하셨다. 그리함으로 인간끼리도 통하게 하였고, <더 높은 단계의 뇌>로 창조주 신과도 통하게 하셨다. 고로 누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려 하면, '육적인 뇌'가 아닌 '영적인 뇌'로 통할 수 있다.

16. 하나님과 통하려면, 먼저 '땅에 보낸 자'와 통해야 된다. 그리고 '성자'와 통해 보고 '성령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삼위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뇌'를 통해서 그 차원으로 통하게 된다.

17. 기도의 스위치, 대화의 스위치다. '영적인 뇌'를 통해 <기도와 대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기다.

18. <깨달음>으로 통하기. <느낌>으로 통하기. <마음의 음성>으로 통하기. <영감, 직감>으로 통하기. <감동>으로 통하기. <꿈>으로 통하기. 낮에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며 통하기다.

24. 사람과도 <말>로 가까워지듯이, 성자와도 <말>로 가까워지고 <말>로 사랑의 조건이 시작된다.

<2014년 9월 5일 금요일 새벽잠언>

1. <하늘 언어>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배우고 사용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게 된다.

2. <하늘 언어>를 선포한 이때를 '기회'로 삼고, 배우고 사용해라.

3. <하늘 언어>를 귀하게 생각해야 배운다.

4. 사람도 <언어>로 의사 표시를 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언어>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시는 말씀은 꼭 알아들어야 된다. 고로 <하늘 언어>를 생명같이 귀히 생각하고 배워라.

6.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육의 것'에 손해가 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육의 것, 영의 것' 모두 다 손해가 간다.

7.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한다.

8. 주를 위해 살려면, <하늘 언어>를 배워라.

9.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며 살라고 <하늘 언어>를 알도록 허락하셨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을 '글과 말'로 사용하시니, 하늘 언어인 <만물>을 배우면 '세상 학문'도 배우는 격이 된다.

11. 지식의 하나님을 배워라.

12. <하늘 말>을 알아들어야 '사명'을 하게 되고, '언을 것'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재물'도 얻게 되고, '휴거'도 빨리 되고, 신부로서 성자와 잘 통하여 매일 '교통'하게 된다.

13. <실물>을 보여 주면 <말>이 필요 없다. <실물>이 곧 <말>이며 <글>이기 때문이다.

14. '실물'을 읽어라. '만물의 글자'를 읽어라.

15. '실물'이 보이면 '말'로 해석해라.

16. '실물'은 '실체'다. 고로 '실물'을 보면 실감 나게 느끼고 무섭게 깨닫는다.

17. 미인이 얼마나 예쁜지 '말'로만 하면 안 본 사람은 실감을 못 한다. '실물'을 보여 주면 실감 나게 느끼고 인정한다.

18. 썩은 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끔찍한지 '말'로만 하면 실감을 못 한다. '썩은 물'만 직접 봐도 냄새가 고약해서 혼쫓난다. '푹 썩은 시체'를 직접 보고 만져 보면 놀라서 기절한다.

19. <말로만 하는 것>과 <실제 형체를 보여 주면서 말하는 것>은 '느낌'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20. <실물>을 보면, 누가 말을 안 해도 충격을 받고 확실히 안다.

21. 하나님은 인간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 <만물의 실체>를 '겉과 속'까지 다 보이시고, '냄새'도 맡게 하시고,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 주면서 '하실 말씀'을 전달하신다.

22. 하나님은 만물의 생김새대로, 만물의 질대로, 만물의 이치대로 깨닫게 하시되, '자기와 타인'과 연관 지어 깨닫게 하신다. 강한 만물을 보여 주면서 '강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약한 만물을 보여 주면서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썩은 만물을 보여 주면서 '썩고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끗한 만물을 보여 주면서 '깨끗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자기와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연관 지어 깨달아라.

23. '만물의 가짓수'만큼 '하나의 하늘 단어'가 된다.

24. 하나님은 '만물의 가짓수'대로 '수억 가지'로 표현하신다.

25. 사람도 '단어'를 많이 알수록 다양한 표현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늘 언어>인 '만물의 이름과 이치'를 많이 알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26. 사람이 <말>을 안 배우면, 누가 말해도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이와 같이 <하늘 언어>인 '만물의 이름과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한 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27.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행위>를 ‘만물’로 비유하여 보이신다. 게으르면 ‘게으르고 느린 만물’을 보이시고, 부지런하면 ‘부지런하고 빠른 만물’을 보이시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수치스러움’을 보이며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고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것’을 보이시며 깨끗함을 깨닫게 하신다.

28. 다윗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했다.

29. 또 다윗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했다.

30. 성경을 읽어도 ‘자기 사명’대로, ‘자기 차원’대로, ‘자기 행위’대로 깨닫는다.

31.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아라.

32. ‘시대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자가 없다.

33. ‘시대 보낸 자’가 하늘 역사의 노정의 주인이 되어 가기에,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못 푼다. 고로 ‘<말씀>을 가지고 온 시대 보낸 자’가 사명을 하게 된다.

34. <만물>을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을 알아듣고 깨달으려면 <시대 말씀>을 배우고,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교통하고, 하늘과 <심정 일체, 생각 일체> 되어 살아야 한다.

35. 욕심 부리고 <만물>만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은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사랑해야 말씀하시고, 필요해야 말씀하시고, 유익이 돼야 말씀하신다. 또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말씀하신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37.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보다 먼저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할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 <기회의 때>에 행해 놓아라. 그러면 ‘환난과 어려운 일’이 와도 다 이기고, 행해 났으니 ‘주인’이 되어 주권을 잡고 다스리게 된다.

38. 하나님은 ‘사명’대로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39. 매일 <하늘 언어>를 배워라. 그래야 매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행하고 ‘상대’에게 하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행한다.

<2014년 9월 6일 토요일 새벽잠언>

1. 하나님이 <같은 만물>을 보여 주셔도 사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다. 사람마다 ‘마음 상태와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같은 만물>을 보여 주셔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행위’에 따라서 달리 깨닫게 하신다.

3. <똑같은 비>이지만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게는 ‘심판의 비’가 되고,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게는 ‘축복의 비’가 된다.

4. 똑같이 <옷>을 보여 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낡고 찢어진 옷’을 보여 주시며 ‘수치스러운 행위’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나는 옷’을 보여 주시고 ‘의의 행위’를 말씀하신다.

5. <똑같은 땅>이어도 팔 사람에게는 “팔아라.” 하시고, 살 사람에게는 “사라.” 하신다. <같은 만물>을 보여 줘도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뜻 해석’이 달라진다.

6.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똑같이 봤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리는 말과,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말이 각각 다르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달리 보이고 달리 들린다.

7. <하늘 언어>는 ‘뜻’을 잘 해석해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만물을 만드시고 보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된다.

8. <하늘 언어>를 잘 해석하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력과 영적 식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늘 교통해야 된다.

9.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시니, <같은 만물>을 보여 줘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고로 제대로 알아듣고 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문제와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10. 그때 그에 해당되는 만물이 없을 때는 그 만물이 생각나게 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11. 만물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날 때는 지혜를 주어 깨닫게 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12. 급한 것은 <영감과 직감>으로 깨닫게 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13. <감동>을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14.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15. <꿈>을 통해서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신다.

16.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을 하신다.

17. 전능자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전능자를 진정 사랑해라.

18. 하늘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이 시대 진리를 배워라.

19. 사람의 ‘행동’도 ‘말’이다. ‘잘해 주는 행동’은 좋아한다는 말이고, ‘막 대하는 행동’은 싫어한다는 말이다.

20. <언어>는 ‘발음’이 정확해야 알아듣는다. 이와 같이 또 다른 언어인 ‘행실’이 정확해야 제대로 알아듣는다.

21. 하나님은 ‘만물’로 말씀하시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 언어>를 배워야 알아듣고, 정확하고 자세히 봐야 깨닫는다.

22. <만물>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공통어’이며 ‘표준어’다. 그러나 각자 자기 수준대로 해석하고 깨닫게 되니, 정확하고 자세하게 봐야 제대로 깨닫는다.

23. 천국에서도 <만물>로, <마음>으로 통한다.

24. 사람들끼리 같이 살려면, 절대 ‘말’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그러하다.

25. 하나님은 <말>로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창조되고, 하나님이 말로 심판하시면 만물이 사역자가 되어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로 축복하시면 만물도 사람도 운행하여 축복을 주게 된다.

26. 하나님의 <한 마디 말씀>에는 ‘천 가지 단어’가 들어 있고, 어떤 것에는 ‘1억만 가지 단어’가 들어 있다.
27. 하나님은 <수억 가지의 다양한 만물>을 보이시며 “사람도 그와 같이 개성으로 존재한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28. <한 남자>를 통해 ‘지구 세상 모든 남자들의 기본 지체 구조’를 알게 하시고, <한 여자>를 통해 ‘지구 세상 모든 여자들의 기본 지체 구조’를 알게 하신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마디’로 ‘수억 가지’를 이해하게 하신다.
29. <전능자의 한 마디 말씀>만 듣고 깨달아도 순간 ‘1억만 가지의 지식’을 얻게 된다.
30.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뉴스에 이슈화될 때 과거에 겪은 것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 일도 그와 같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 이렇게 하나님은 한 마디로 ‘1억만 가지’를 교훈하신다.
31. <하늘 언어>를 배우면, 자기와 연관시켜 깨닫고 사고 없이 문제없이 행하게 된다.
32. <만물>은 ‘하나님의 보이는 글과 말’이다.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만물’로 <하늘 언어>가 전달된다.
33. 월명동에는 사연이 있는 소나무들과 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글자’가 되고 ‘말’이 되어 무언으로 깨닫게 해 주고 있다. 모두 그것을 보고 ‘기본 계시’를 듣고 행하고, ‘자기 입장과 행위에 따른 개성의 계시’를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여라.

<2014년 9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2. 죄를 안 짓고 사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3. 호기심에 끌려가지 않고 성자를 따라가는 자가 ‘능력자’다.
4. 자기중심으로 쏠리지 않고 오직 성자 중심으로 이끌어 주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5.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자를 따라가는 자가 ‘능력자’다. ‘빛나는 인생’이다. ‘황금 인생’이다.
6. 이성의 유혹이나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성자를 따라가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7. 불법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호기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성애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 신앙을 할 때 견지 않고 ‘날아가는 것’이 방법이다.
8. 걸어가다 보면 이것저것 다 거쳐야 하니, 뿌리치기 힘들다. 날아서 가면, 이것저것 거치지 않고 단숨에 갈 수 있다.
9. <육신>은 날지 못한다. <정신>, <혼>, <영>은 날 수 있다. 마음 딱 잡고, 정신줄 딱 잡고 놓지 말고 하면 날게 된다.
10. 사람들은 잘하다가도 순간 힘들고 어렵다고, 순간 정신줄을 놔 버린다. 그 순간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 놓은 공적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 순간의 좌절과 포기로 성자를 떠나게 되기도 한다.
11.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지쳐도 정신줄 딱 잡고 살아야 된다. 마음 딱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12. 힘들면 잠시 쉬되, 성자 품을 벗어나서 쉬려고 하지 말고 성자 품에 딱 안겨서 성자 손을 딱 잡고 잠시 휴식하면 된다.

13. <휴식>은 ‘충전’이 될 정도로 해야지, <휴식>을 ‘영원한 이별’이 되게 하면 안 된다.

14.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 딱 잡고, ‘정신줄’ 딱 잡고 놓지 말고 성자를 중심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면 날게 된다. 이런 사람은 날아가면서 성자를 따라가기에 성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능력자’다.

15. 어디서나 성자가 주신 희망을 잃지 않는 자가 ‘능력자’다.

16.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데 성자는 싫어하는 것이면 안 하는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능력자’다. ‘기술자’다. ‘영적인 자’다. ‘지혜로운 자’다. ‘정말 아는 자’다. ‘신성을 가진 자’다. ‘성자 앞에 합당한 자’다. ‘성자의 사랑하는 자’다. ‘귀한 자’다. ‘위대한 자’다.

<2014년 9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희망’은 ‘실제’보다 만 배의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해 준다.

2. 산 너머에 있는 포도와 다래를 따러 갈 때까지의 희망은 엄청나다. 그 희망은 포도와 다래를 따기까지 계속해서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한다. 그러다 실제로 따 먹을 때는 희망도 끝나고, 엔도르핀도 솟지 않는다.

3. 인생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목적을 이룰 때까지 희망과 엔도르핀은 연속된다. 목적을 이뤘을 때만 ‘기쁨과 희락의 시간’이 아니다. 목적을 이루는 과정의 기간이 ‘삶의 희락의 기간’이다.

4.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0년의 기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재림의 희망 기간’이었다.

5. 기독교에서 기다리던 자가 와서 ‘이 세상’에서 <재림역사>를 펴는 기간은 ‘기다렸던 2000년’에 비해서 ‘40분의 1’도 안 된다.

6. 예수님 당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고 산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많아졌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불탔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살아 있을 때 다시 오시려나?” 하면서 <재림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렸다. 그 기간이 ‘2000년’이다.

7. 예수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희망>으로 살았던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세계로 창대하게 펼쳐져 나갔다.

8. 그동안 희망으로 기다렸으니, 이제는 ‘희망을 이뤄야 될 때’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 그대로’ 오지도 않으시고, ‘영’으로도 다시 오지 않으신다.

9. <희망의 역사>는 ‘다음 역사인 성약’ 때 ‘땅’에서 이루어진다.

10. 구약 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올 것’으로 알고 4000년 동안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때> 오지 않으시고, 땅의 인간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택하여 <신약의 새 역사>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펴 나가셨다.

11. 구약인들의 99%는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 오셔서 역사를 펴 나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끝났다. 베드로, 사도 요한 등 소수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봤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2. 한 인물, 한 시대다.

13. 그 인물이 살아 있을 때가 ‘당세’이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펴 나가는 주관권까지가 ‘한 시대 역사’다.
14. 당세도 한 인물, 그 인물을 중심으로 주관권도 한 인물이다.
15. 구약 때는 ‘모세, 한 인물’이다. 모세가 살아 있을 때인 당세에도 ‘모세, 한 인물’이고, 모세가 죽고 나서 그를 중심으로 한 4000년 구약 주관권까지도 ‘모세, 한 인물’이다.
16. 신약 때는 ‘예수님, 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인 당세에도 ‘예수님, 한 인물’이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2000년 신약 주관권까지도 ‘예수님, 한 인물’이다.
17. 신약 후 새 역사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인물’이다. 그가 살아 있을 때인 당세에도 ‘한 인물’이고, 그가 죽고 나서 그를 중심으로 한 성약 1000년 주관권까지도 ‘한 인물’이다.
18. 이로써 ‘아담 이후 7000년 역사’로 구원 역사가 끝난다.

<2014년 9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귀한 것’을 찾는다. ‘귀한 것’을 찾으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좋아한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알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여 판매한다.
2.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롭게만 생겼지, 어떤 것은 옛것만도 못한 것이 많다. 새것을 만들어 이용하는 상술에 속지 말아야 된다.
3. ‘귀한 것’도 많이 있으면 가치가 없다. 하지만 거의 다 없어지고 수량이 몇 개 안 남으면, 그때는 10배 이상 귀한 취급을 받게 된다.
4.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별로 없어서 귀한 맛이 있지, 실상 그 존재물의 가치는 실속 없는 것들이 많다.
5. 전자 제품도 새것을 만들어서 팔지만, 실상 ‘속’은 비슷한데 ‘겉의 형체와 모양’만 달리 만들어서 새것이라고 하며 판다.
6. 기성보다 낫다고 하며 <새로운 말씀>을 내놓지만, ‘속’을 보면 말씀이 비슷한데 ‘겉 포장’만 달리하여 말한다.
7. <진짜 새것>은 ‘속’도 ‘겉’도 예전 것과 아예 다르다.
8. <성약 말씀>은 세상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다.
9. 성약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받은 말씀이 <성약 말씀>이다.
10. ‘보낸 자가 받은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의 기존 교리에 끼워 넣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시대 주인’이 없으니 ‘남편 없는 여인’과 같다.
11. 이단들은 ‘새 역사 섭리사’에 오지 않고 ‘섭리사 교리’만 갖다가 쓴다. 이는 마치 고급 차를 보고 좋으니, 덤프트럭에 고급 세단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비행기를 보고 욕심나니, 자기 차에다가 비행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비행기 부속품을 도둑질하여 자기 차에 매달고 다니면서 자기 차의 부속품이라고 하는 격이다.
12. 더러운 자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다. 온전한 자만 온전한 행위를 한다.

13. <시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에만 맞고, 시대 주인을 100% 믿고 따르고 가는 자가 행할 때만 효력이 있고, 그들만 그에 해당되는 휴거를 이루고 간다.

14. <새 시대 말씀>을 도적질해다가 전하여 믿고 따르며 행해도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시대 주관권에서 녹슨 것만 닦아 낸 정도다. 고로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15.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 <새 시대 말씀>만 도적질해다가 전하며 행하는 것은 참감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고욤나무에 옷 입히듯 하는 격이라서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기 전에는 ‘고욤 열매’만 열릴 뿐이다.

16.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섭리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치고 행해도 역시 ‘고욤나무 열매’다.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새 시대 섭리사 말씀’을 행해야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인 격이 되어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린다.

17.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18. 어떤 사람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여 ‘참감’이 열리는 것을 보더니,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은 싫어하고 ‘참감’ 얻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접붙이는 원리>를 배우고 가서 ‘자기 나무’에 ‘자기 주인의 나무’를 접붙이고 ‘참감’ 열기를 희망하며 3년을 키우고 가꿨다. 그런데 3년 후에 ‘참감’이 열릴 줄 알았는데 ‘고욤열매’가 열렸다. 이를 보고 ‘기이하다. 참감나무를 접붙이듯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데 어떻게 고욤 열매가 열렸지?’ 생각했다. <접붙이는 원리>는 똑같았지만, ‘참감나무’를 접붙인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나무인 ‘돌감나무’를 접붙였으니, 접붙였어도 ‘고욤 열매’가 열린 것이다.

19. <접붙이는 원리>는 ‘새 역사 말씀’이다. <참감나무>는 ‘시대 보낸 자’다. <접붙이는 원리>만 가지고서는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참감나무>와 접붙여야 ‘참감’이 열린다.

20. <참감> 역사는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의 육’을 ‘참감나무’로 만들어서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 <참감 역사>, <참진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와 같이 있는 곳은 갇힌 곳이 아니다.

2. 누구든지 성자와 같이 있는 자는 옥에 있어도 갇힌 자가 아니다.

3.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도 성자와 같이 있지 않는 자는 갇힌 자다.

4. 주와 함께 있는 자는 자유로운 몸이다.

5. 뇌에 생각이 있을 때는 ‘낮’과 같다. 그러다 뇌에 생각이 사라질 때는 ‘밤’과 같다.

6. 생각날 때가 그것에 대한 계시를 받는 때다. 즉시 기록하고 실천해라.

7. 사람이 ‘뇌에 생각이 있을 때’는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베다 창고에 쌓아 둔 것 같고, ‘행할 때’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8. 실천자는 매일 변화되고, 매일 얻는다.

9. 뇌에 생각이 있을 때, 감동될 때, 자극이 될 때 행해라.

10. 공중의 새가 나무에 앉았다가 금세 사라지듯, 생각은 뇌에 있다가 스르르 사라진다.
11. 성자는 ‘할 일’이 순간 생각나게 하신다. 고로 생각났을 때 즉시 행해라. 그것이 성자가 크게 도우신 것이다.
12. ‘행하는 자’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다.
13. 행하지 않으니, 행할 때까지 꿈에나 생시에나 거기에 대한 현상을 <만물>로 보여 깨닫게 교육하시는 것이다.
14. ‘행하는 자’에게도 꿈에나 생시에나 거기에 해당되는 현상을 <만물>로 보여 깨닫게 하시는데, 이는 어떻게 하라고 코치하시는 것이다.
15. <월명동 자연석> 중에서도 ‘형상과 모양’이 있는 돌이 가치 있다. 고로 그 돌에 얹힌 사연을 듣고 늘 귀히 본다. 이와 같이 <사람>도 ‘그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닮았느냐’에 따라서 귀히 보고 그 사연을 듣고 좋아한다.
16. ‘시대 보낸 자’를 따르며, 그를 통해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 따라서 형상이 이루어지니, <천국을 상속받는 형제>가 되어 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된다.
17. 이단의 자체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자들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자들과, 구시대를 좇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행위’대로 형상이 이루어지니, 그 위치의 취급을 받고 살게 된다.
18. 절대자는 절대 믿고 사랑해야 통하게 된다.
19. 절대자는 절대로 대해야 통하게 된다.
20. 투자하다가 유익이 없으면 중단하게 된다.
21. 투자하다가 앞날의 이익과 흑자가 없을 것 같으면 가다가 중단한다.
22. 휴거되면 지구 전체가 자기 것이다. 고로 ‘휴거’에 투자해도 손해가 안 간다.
23. ‘휴거’를 위해 투자해라. 매일 유익이다. 영원히 유익이다.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때가 때다.
2. 지금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3. 새벽에도 일어날 때가 있다. 그때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난다.
4. 새벽에 일어날 때 일어나야 하듯이, 만사의 모든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이기고 꼭 해야 된다.
5. 꼭 빠져 잠을 자듯,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승리한다.
6. <때>는 마치 ‘자기 사랑하는 자를 순간 만나는 때’와 같다. 새벽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7.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성자는 와 계신다. 그때 다른 생각을 하면 못 일어나서 성자를 못 만난다. 그러니 그때는 손가

락으로 이마를 일곱 번 튕기며 자극을 주면서 일어나야 된다.

8. 자다가 눈을 떴어도 그때는 수면 상태다. 고로 눈을 떴을 때 5초, 10초 내로 일어나야 일어나진다. 그때 안 일어나면 다시 잠이 든다.

9. 어떤 일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생각났을 때, 봤을 때, 그때가 기회다. 순간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시간’이 온다. ‘다른 생각’이 온다. 고로 그때는 안 하게 된다.

10. <기회>를 놓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료와 기술’이 있고, ‘시간’이 있어도 모두 허사다.

11. 기회가 핵이다.

12. 기회를 알고, 그때 행하는 것이 핵이다.

13. <기회>는 마치 깜깜한 밤에 암벽 길을 가는데, 그 순간 번개가 쳐서 순간 주변이 밝아졌을 때와 같다. 그 순간 빨리 걸어가야 된다.

14. 마음에서 싫으면, 천하의 어떤 것도 싫은 것이다.

15. 몰라서 싫어하던 것도 알면 좋아하게 된다.

16. 예뻐도 미운 짓을 하면 밉다. 성자 앞에서도 그러하다. ‘행위’대로 예쁘게, 혹은 밉게 보인다.

17. 영계에서는 <영의 형상>이 ‘육의 행위’대로 변해서 보인다.

18. <육계>에서는 얼굴이 예쁜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그 예쁜 얼굴’은 그대로 있고, 다만 ‘미운 마음과 싫은 마음’만 든다. <영계>에서는 다르다. 미운 짓을 하는 영은 ‘그 얼굴과 몸의 형체’가 밉게 변해 있고, ‘마음도 생각’도 밉게 보인다.

19. 영계에서 보면, 어떤 영은 얼마나 미운 짓을 했는지 ‘그 영의 얼굴과 몸’이 아예 ‘짐승’처럼 변해 있다. 고로 모두가 그 영을 대할 때, 본래부터 짐승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짐승 취급을 한다. 알고 보면 전에는 ‘사람 영’이었다. 변해서 그리된 것이다.

20. 세상에는 폭력을 쓰는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모두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아예 ‘폭력꾼’으로 본다. 그 사람도 전에는 ‘선한 사람’이었다. 변해서 그리된 것이다.

21. 영계에서 보면, 어떤 영은 아예 ‘뱀’이 되어 다닌다. 뱀으로 알고 때려잡으니, 뱀 이빨이 ‘사람의 치아’였다. 전에는 ‘사람 영’이었던 것이다. 변해서 뱀이 된 것이었다. 이빨만 조금 ‘사람의 형상’이 남았는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아예 ‘뱀 이빨’로 변해서 뽀족하게 된다고 성자는 말씀하셨다.

22. <이 세상>에서는 자기 행위가 악해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모른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자기 행위’대로 ‘옷’을 입고 다니기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도 급수가 높은 자만 이를 알아본다.

23. 육신은 멀쩡해도 영급이 높은 자가 영계로 그 ‘육’을 보면 얼굴도, 옷도, 몸도 흰히 다 보인다. 고로 육신은 멀쩡해도 얼굴이 어둡게 보이고, 더러운 옷을 입은 것도 보이고, 몸이 불구로 보이고, 시체같이 보인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순간순간 보인다.

24. 자기 것이니, ‘자기’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타인이 못 하는 것이다.

25. 자기 것이니 ‘자기’에게만 기쁨이고 희망이다. 고로 ‘자기’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주인이 돼야 한다.
26.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사랑하고, 주인이 희망을 누리고, 주인이 감사하는 것이다.
27. 가령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누가 기뻐해야 되겠느냐. 타인이나, 자기냐? ‘자기’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28. 그 일의 사명자가 그 일을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29.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잔치해야지, 타인이 대신 못 해 준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30. 자기 생일에 타인이 대신 기뻐해 주겠느냐. ‘자기’가 기뻐하며 잔치하는 것이다.
31. 주 안에서 자기 것은 ‘자기’가 기뻐 행하기다. 막연히 타인이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32. 자기 영광, 자기 감사, 자기 기쁨, 자기 희망, 자기 사랑이다. 창조주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할 일을 하며 책임을 하고, 영광도 받고, 기뻐하고, 희망을 누리고, 사랑하며 보람 있게 살라고 하셨다.
33. 자기 자녀와 자기 애인을 누가 챙기겠느냐. ‘자기’가 챙기고, 사랑하고, 다스리고, 보람을 느끼고, 감사해야 된다.
34.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자기’가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자가 없다.
35. 자기 것은 ‘자기’가 관리하면서 얻고 쓰고 사는 것이다.
36. ‘자기’가 성자를 만나 사랑하며 살고,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자기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37. 과일나무를 심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으면, ‘자기’가 과일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 주고 더 퇴비해야지, 세상의 어느 누가 대신 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38.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가 감사해야지, 남이 알지도 못하는데 대신 감사해 주겠느냐. 개인이 잘해라.
39. 이제는 모두 자기가 받은 것에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매일 잔치하여라.

<2014년 9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너’를 위해 아무리 빨리 행하셔도 ‘본인’이 느리게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항상 생각보다 빨리 행하신다.
3. 사람들은 모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때 먼저 은밀히 행하신다.
4. 가뭄과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배’를 만들라 하시고, ‘댐’을 만들라 하시고, ‘산사태가 날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하시어 자리를 옮겨 ‘집’을 지으라고 하신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가뭄과 더위에 시달리고 있으니, 그 상황의 주관을 받으며 이해를 못 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을 때, 의인

들에게 일을 시키신다. 이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을 비웃고, 악평하고, 야유하고, “왜 현실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 한다. 여유 있게 하려면, 아예 미리 한다. 때가 되어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저들이 잘했다.” 하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끝난다.

5.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심판 전에 항상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의인들’을 미리 깨우쳐 주시어 심판을 피하게 하셨다.

6. 만일 그 날이 닥쳤을 때 “피해라!” 하면, 당황해서 챙길 것을 제대로 못 챙긴다. 자기 집,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생명, 가족의 생명 등 모든 것을 챙기려면 미리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도우신다.

7.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으려고 하는데, 그곳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터를 닦으려면, 그 나무를 베어 없애야 한다. 이때 하나님은 ‘그 나무를 구할 자’로 미리 깨닫게 하시어, 미리 가서 그 나무를 구하게 하신다. 때가 되니 주인도 ‘그 나무를 베느니 파는 것이 낫다.’ 하고, 쉽게 팔게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연 만물>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시며, 자기와 타인을 연관 지어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신다.

9. <그에 해당되는 만물>이 없을 때는 ‘마음으로 합당한 만물이 생각나게 하면서’ 말씀하신다.

10. 아무 형상도 안 보이고 말로 대화하듯, ‘마음과 생각’으로 대화하기도 하신다.

11. (영상) 힘들게 가야 힘들게 온 길을 되돌아가지 않는다.

12. 힘들게 얻은 것과, 힘들게 얻은 사람은 ‘황금’같이 귀히 여긴다.

13. 고생돼도 자기 인생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러면 ‘자기 인생’이 걸작품이 되어 귀히 여기게 되고, 희망이 되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된다.

14. 과거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얻은 것’은 귀한 것이다. 귀히 관리하여라.

15. 얻을 때는 귀히 여기고 얻었는데, 얻고 나서 멀리하면 뺏긴다. 구원도, 휴거도, 육적인 모든 것과 영적인 모든 것도 그러하다.

16. 땅속의 금이나 각종 보석만 보화가 아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보화이며 금이다.

17. 1억짜리 형상 돌, 100억짜리 형상 돌 모두 금덩어리보다 수십 배 더 비싸다.

18. 비싼 땅, 비싼 나무, 비싼 돌, 비싼 집 모두 금덩어리와 같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이 ‘매일 황금 덩이를 캐는 것’과 같다. 그러면 금보다 귀한 <영생길>을 가기 때문이다. 구원받고 휴거되어 <황금의 나라>로 가기 때문이다.

20. 성자가 황금 덩이다.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봄>에는 씨 뿌리기, <여름>에는 가꾸기, <가을>에는 거둬들이기다.

2. 뿌리고 가꾼 대로 거둬들이지 않으면, 헛수고다.
3. 신앙 세계에서도 뿌리기, 가꾸기, 거둬들이기다.
4. 아무리 뿌리고 가꾸며 수고했어도 거둬들여야 '자기 것'이 된다.
5. (성자) 이제는 뿌리기만 하지 말고 거둬들여라.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노력하고, 얻기 위해 행하며, 조건을 세우는 것이 '농사'다.
7. 농사를 짓고 나서 가을에 거둬들이듯, 기도하고 노력하고 행하며 조건을 세웠으면 꼭 거둬들여라.
8. 황재할 꿈을 꿔으면, <축복>을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라. 찾아라. 행해라. 더욱 기도해라. 그래야 정말 황재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었어도 정말로 황재하려면,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찾고 노력하며 더욱 행해야 된다.
10. 기도하며 더욱 행할 것을 행하며 조건을 세우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섭리사를 위해 꼭 거둬들여야 할 귀한 생명'을 주셨다.
11. 기도하며 더욱 행할 것을 행하며 조건을 세우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동안 예비해 놓으신 돌'을 주시어, 중단했던 월명동 작업을 시작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상을 완성하게 하셨다.
12. 하나님과 성자가 이같이 오랫동안 준비하셨어도 기도하고 조건을 세우며 뿌려야 얻을 수 있다.
13. 뿌린 대로 거둬들여야 문제가 해결된다. 소원이 성취된다. 희망이 이루어진다.
14. 기도하며 더욱 행할 것을 행하며 조건을 세우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가 거할 넓은 성전'을 주셨다. '그 성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쓰기에 딱 좋은 성전'이다.
15. 남에게는 필요 없어도 자기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남에게는 별로여도 자기에게는 최고인 것이 있다. 자기에 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자기가 원하던 것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이 황재한 것이다.
16. 좁은 골방에서 두 배로 넓은 곳에만 가도 날아다닌다.
17.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사망권에 있는 생명들을 생명권으로 확실히 거둬들여라.
18. 때가 됐는데도 '들판의 곡식과 과일'을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차가운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면 얻지 못하고 끝나 버린다.
19. 역사적으로 볼 때, 올해 필수로 꼭 거둬들일 것은 <휴거 300선>의 영이 되는 일이다. 휴거되면, 정말 '황재하는 꿈'을 이룬 것이다.
20. 휴거를 위해 100% 조건을 세워 졌으니, 각자 자기 책임만 하면 된다.
21. 모두 거둬들이도록, 선생은 작년 <7개월 절식 기도>에 이어서 올해도 <1차 6개월 절식 기도>를 또 했다. 모두 총동원하여 '그동안 수고한 것들'과 '생명들'과 '각종 것들'을 거둬들이고, '휴거'되어 거둬들여라.

<2014년 9월 16일 화요일 새벽잠언>

22. 올해는 ‘성자가 떠나시는 해’다.

23. 때가 되면, 급하니 다른 것은 안 보인다. 오직 ‘갈 길’만 보인다.

24. 항상 ‘신’은 ‘사람’보다 앞서서 먼저 가신다. 고로 재촉하며 서둘러야 따라가서 같이 살 수 있다.

25.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휴거 300선>을 이뤄야 된다.

26. 성자가 떠나셔도 <휴거 기간>은 한 기간 동안 연속된다. 그러나 ‘영의 신랑’이신 ‘성자’ 없이 혼자서 하니, 정말 힘들다.

27. 성자가 떠나면 차를 못 타고 ‘걸어가는 격’이라서 그만큼 힘들다. 성자가 함께 계실 때는 ‘차를 타고 가는 격’이라서 쉽다.

28. 성자가 계실 때, 차를 타고 가듯 해야 된다. 그래야 휴거되기 쉽다.

29. ‘성자의 육, 분체’는 절대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육신을 가지고 사니, 시대 환난의 영향을 받는다. 또 육신은 갇혀 있을 때가 있으니 그때는 돌풍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나 ‘절대신 성자’는 육의 영향, 환난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신이니 마음대로 하신다. 그래서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휴거돼라.” 한 것이다.

30. <휴거>는 꼭! 성자가 계실 때 성자와 같이 이뤄야 된다.

31. 성자는 떠나시기 전에 개인과 민족과 세계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가신다.

32. <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으니, 몰라서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알고도 ‘안 하는 자’는 휴거되지 못한다.

33. ‘행하는 자’는 꼭 휴거된다.

34. <휴거 100선, 200선>이면 거둬들이지 못한 채, 올해를 떠나보내게 된다. 그러면 육도 혼도 영도 정말 힘들어진다.

35. 휴거를 위해 올해 또 6개월 동안 절식하며 기도했으니, 각자 조금씩만 더 수고하면 거둬들인다.

36. 이때는 느슨해질 때가 아니다. 추수 때다. 거둬들이는 때다.

37. 기도해라. 그러면 자기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감동되고 떠오른다.

38. 때를 놓치면 배나 더 힘들고, 때에 맞춰서 하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능히 할 수 있다.

39. <휴거>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 자기 몸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

40. 이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뿌리고 가꾼 대로 거두고, 지구가 생긴 이래 인간으로서 최고로 좋은 영원한 것을 얻는다.

41. 지금은 <최고의 기회의 때>다. 이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42. 환난 전에 꼭 휴거돼라.

43. 성자가 떠나신 후에는 환난이 일어나 휴거되기 힘들고, 살아남아도 신앙 불구가 된다.
44. 성자는 ‘휴거된 영들’은 거둬들여 <천국 황금성>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까지 계속 역사해 오셨다.
45. 이제 성자는 ‘휴거된 영들’을 거둬들이고 떠나신다. ‘미완성된 영들’은 안 익은 곡식과 같아서 열심히 하도록 두고 가신다.
46. <휴거>는 섭리인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열심히 안 한 자들은 <예정된 휴거>를 이루지 못하고 만다.
47. ‘주와 일체, 성자와 일체’로 <휴거>를 이룬다.
48. ‘상체 사랑, 뇌 사랑’이 <휴거의 최고 에너지>이며 <조건>이다.
49. ‘진리를 행하는 것’이 <휴거의 공적>이다.
50. ‘죄를 회개하는 것’이 <휴거의 조건> 중 하나다.
51. 저마다 <개성과 재능>이 있다. 그러나 ‘자기 재능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으면, 휴거되지 못한다.
52. <자기 재능>이 적다고 안 하면,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것과 같다.
53. 재능이 적어도 ‘자기 개성과 재능의 달란트’를 쓰면서 <휴거>를 이루는 것이다.
54. 누가 휴거되지 못하게 하느냐. 너만 하면 할 수 있다. 휴거는 예정이다.
55. 사탄이 휴거되지 못하게 막느냐. 사탄은 사탄 주관권 안에 온 자들에게만 조건을 붙이고 터치한다.
56. 자기 할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권 안에 있다. 고로 사탄이 와서 방해하지 못한다.
57. 예정되어 있는데도 안 하니, 못 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 못 하는 것이다.
58.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들은 모두 다 ‘휴거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면 된다!
59. 네가 ‘네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가만히 두고 ‘할 일’을 안 하니, 너 스스로 너를 고생시키는 것이다.
60. 네 할 일을 하면, 평안이 온다.
61.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멘토링하면서 행해라.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도하며 행한 것들을 거둬들이게 된다.
62. 이미 거두기도 했지만, 아직 거두지 못한 것들을 모두 거둬들여라.
63. 뿌리고 기도하고 고생하며 노력한 것들을 거둬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희망했던 것들을 최고로 만족하게 얻게 된다.
64. <시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뿌린 것을 거둬들여라.

65. 최선을 다해야 '희망했던 최선의 것'을 얻게 된다.
66.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관리하며 새벽부터 거둬들일 이때다.
67. 자기가 못 거두면 '타인'이 거둬 가고, '원수'가 거둬 가고, '사탄'이 거둬 간다. 그리고 거둔 것을 먹고 마시면, 힘이 나서 더 공격한다.
68. 그동안 수고하고, 그 일을 위해 행하고, 뿌리고, 가꾸고, 관리한 것은 '거둬들이기 위험'이다.
69. 일만 자꾸 벌이고 뿌리기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고 거둬들여 '자기의 것, 교회의 것, 섭리사의 것'으로 삼아라.
70. 지금은 거둬들이는 <추수기>다. 부지런히 찾고 관리하고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각종 것들'을 거둬들이고, 말씀의 핵심을 확실히 가르쳐 시대를 완벽히 알게 해 주어 '생명들'을 거둬들이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수고하여 '휴거의 생명'을 거둬들여라.

<2014년 9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영혼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2. 같은 육신을 가지고 성자가 말씀하신 대로 살면 <생명의 길>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사망의 길>이다.
3. <사망의 길>로 가다가 멈추려 하지 말고, 아예 가지 말아라.
4. 육신을 통해 <사망길>로 가기도 하고, 육신을 통해 <생명길>로 가기도 한다.
5. 이 세상에서 네 육신이 '사망권'에서 살았으면 네 영도 <사망>으로 가고, 네 육신이 '생명권'에서 살았으면 네 영도 <천국>으로 간다.
6. 자기 영혼은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이 산 대로 그 길로 간다.
7. 사망의 사람들은 <사망>으로 데려가고, 생명의 사람들은 <생명>으로 데리고 간다.
8. 하루를 살아도 <사망으로 사는 시간>이 있고, <생명으로 사는 시간>이 있다.
9. 죄를 짓는 시간은 <사망으로 가는 시간>이고, 의를 행하는 시간은 <생명으로 가는 시간>이다.
10. 새벽에 기도하는 자는 <생명길로 가는 자>이고, 못 하는 자는 <사망으로 가고 있는 자>다.
11. 새벽에 정한 기도 시간이 넘었는데도 잠을 자니, 내 혼이 <사망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험한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다. 잠을 깨서 기도하니, 즉시 그 길을 벗어나 <생명길>로 가고 있었다. → 육신이 행하는 대로 혼도 영도 따라가게 된다.
12. 돈도 안 쓰면 가치가 없고, 돈의 세력도 나타나지 않는다.
13. '자기'가 돈이다. 세력이다.
14. 행하면서 자기 육신을 써야 가치 있게 빛나고, 세력이 나타난다.
15. 돈의 액수만큼만 가치와 세력을 나타낸다. 고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쓰면 된다. 가령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하자. 그 만큼의 돈은 100만 원의 세력밖에 못 나타내니, 그 가치만큼 쓰면 된다.

16. '자기'라는 돈도 그러하다. 자기에겐 힘과 능력이 적은데, 무리하면 그만큼 힘들다.

17. 그러나 돈의 액수는 많은데 그 가치만큼 큰 데 못 쓰고 작은 데 쓰면, 오히려 손해가 간다.

18. '자기'도 그러하다. 자기에겐 힘과 능력이 있어서 크게 행하면서 살 수 있는데, 작게 쓰면 오히려 손해가 간다.

19. 자기 힘과 능력대로다.

20. 자기 육신, 마음, 정신, 생각, 혼, 영의 세력이다. 이것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서 써야 '영원한 세력'이 된다.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큰 것'은 잘 고치는데 '작은 것'은 잘 안 고친다.

2. '작은 모순'이라도 고치고 '작은 죄'라도 회개하여 없애라. 그래야 '크게 잘하는 것'도 빛이 나게 된다.

3. 조금 고장 났어도 안 고치면, 전체가 다 고장 난 취급을 받게 된다.

4. 사람이 단장하는 데 있어서도 다 갖췄는데 '신발 하나'만 못 갖추면, '전체'가 <갖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다 갖춰야 <갖춘 가치>를 발휘하며 행하게 된다.

5.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자 앞에 '모든 것'을 다 갖춰야 <갖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6. '행실의 옷'을 모두 갖춰라.

7. '시대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갖춰라.

8. '시대 구원의 말씀'을 듣고 갖춰라.

9. '성자 신부의 자격'을 갖춰라.

10. '시대와 주를 증거함'을 갖춰라.

11. 묵욕하듯, 죄가 있으면 '회개'로 죄를 없애기다.

12. 온전히 회개하여 '정결함'을 갖춰라.

13. 인간은 살아 존재하니 매일 더러워져서 씻어야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존재하니 '생활의 죄'를 짓게 된다. 고로 매일 '회개'로 정결하게 하기가다.

14. 신앙은 '갖추기'와 '모순 버리기'다.

15. 하늘 앞에 '돈'만 바치려 하지 말아라. '시간'은 돈이니, '시간'을 성자와 주께 바쳐라. 성자께서 합당하게 쓰신다.

16. 세상 일도, 공부도 성자와 주를 위해서 해라. 그러면 모두 '성자와 주께 바친 시간과 삶'이 된다.

17. 매일 매시간 성자와 주와 통하고 살아라. '신부의 삶'을 살아야 '신부'로서 존재한다.
18. 죽은 자는 애인이 아무리 전화해도 안 통하듯이, 신앙이 죽은 자는 성자와 안 통한다. 산 자가 되어 성자와 통해야 된다.
19. 성자와 안 통하는 자가 죽은 자다.
20. 성자와 통해야 영도, 혼도, 마음도 안 죽는다.
21. 신앙이 안 죽으려면, 시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매일 행하며 살기다.
22. '자기 작은 모순'이라도 매일 고쳐야 영이 죽지 않고 산다.
23. 수십억짜리 차를 매일 닦으며 관리하듯, 자기 영과 육을 매일 관리해라.
24. '깨끗함'은 자기를 빛나게 하고, 자기 가치를 높게 한다.
25. 새벽에 교회에 못 갔으면, 집에서 꼭 기도해라.
26. 하라는 것만 하지 말고, 자기가 더 연구하고 행하면서 '신앙의 주인'이 돼야 한다.
27. 자기가 못 한 것은 옆의 사람이 희생으로 돕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것은 자기가 꼭 행해야 된다.
28. 매일 힘내서 행하는 것이다. '매일 하는 것'이 영웅의 삶이다.
29. 휴거된 자신보다 휴거된 자를 보고 성자께서 더 좋아하신다.

<2014년 9월 19일 금요일 새벽잠언>

30. (성자) 갓출 것을 다 갖추어라.
31. (성자) 갓출 것을 다 갖추야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거둬들이게 된다.
32. (성자) 아예 휴거를 생각하지도 않아서 휴거되지 못한 자는 아깝지 않다. 꼭 휴거되려 하는데 갓출 것을 못 갖추서 휴거되지 못한 자는 너무 아깝다.
33. (성자) 지금은 마지막으로 결심하고 갖추는 때다.
34. (성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듯이 갖추어라.
35. 구원자는 구원받는 자보다 수백 배 더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애간장을 태운다.
36. 기도하면, 자기가 갓출 것이 깨달아지고 보인다. 꼭 기도해라.
37. 사람이 행하려고 마음먹고 결심하면 과거 1년, 10년 동안 못 했던 것도 하게 된다.
38. '마음·생각·정신'이 죽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행해지지도 않는다.
39. 새집을 짓고 전깃불을 달듯이, 마지막으로 갓출 것을 신앙으로 갖추기다. 집도 지었는데 전깃불을 못 달겠느냐. 지

금까지 해 왔는데, 조금 남은 것을 못 하겠느냐.

40. 갖추는 것도 ‘때’가 있다. 꾸물거리면, 마지막 좋은 기회를 잃고 만다.

41. 성자께서 분체를 통해 ‘말씀의 나팔을 불 때’가 갖추 기회다.

42. 책을 다 쓰고 나면, 마지막으로 ‘확인’과 ‘교정’이 필요하다. 그 엄청난 분량의 책도 10년 동안 썼으면서, 몇 달이면 교정하는데 그것을 못 하느냐.

이와 같이 <신앙 점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곧 ‘갖추는 일’이다. 그동안 엄청난 것도 다 했는데, ‘조금 남은 것’을 못 하겠느냐.

43. 신앙의 이치는 세상의 이치와 동일하다. 자기를 자세히 파악하고 고치고 갖춰라. 하면, 시동이 걸린다. 시동이 걸리면, 식사와 잠을 다 주관하며 하게 된다.

44. <신부>는 갖추 것을 꼭 갖춰야 사랑하는 자를 떼뻗이 맞게 된다.

45. ‘희망’이 있는 만큼 갖추게 된다.

46. ‘천국 황금성에 가는 희망, 성자를 맞는 희망’만큼 큰 희망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없다.

47. 성자는 우리의 애인이 되고 신랑이 되시어 ‘우리가 갖추 것’을 <말씀>으로 해 주신다. <분체를 통한 말씀>이다.

48. 우리가 ‘마지막으로 갖추 것들’은 아주 쉬운 것이다. 지난날에는 100배 더 큰 것도 갖췄다. 이제 ‘마지막으로 갖추 것들’은 갖춘 것을 닦고 청소하는 정도다.

49. 마지막으로 ‘작은 것들’을 못 갖추면, 그 영이 흠이 있어서 휴거되지 못한다.

50. ‘완전히 깨끗하게 갖춰진 영들’만 휴거되어 천국으로 이끌려간다.

51. <신부>는 ‘정결’이다.

52. 성자는 깨끗하시니, 깨끗한 신부들만 성자께 딱 들러붙어 성자가 가시는 데로 이끌려가게 된다.

53. 햇볕에 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되는데, 이때 ‘깨끗한 물’만 증발된다. 쇠나, 돌이나, 나무나, 흙은 절대 증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깨끗한 영’만 하늘나라로 오르게 된다.

54. 하나님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깨끗하게 정화시켜 오셨다. 그 터전 위에 이 시대 성역역사는 ‘정결’이다.

55.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만들기다.

56. <시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신부로서 정결해진다.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57. 신약 2000년 역사를 두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려 왔다.

이 재림의 때를 맞아 당세에 사는 자들은 인간으로 태어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 전에 태어난 자들은 육신

이 죽고 없어서 ‘육신’ 가지고 못 맞고 ‘영’만 가지고 맞는다.

재림과 휴거 당세에 사는 자들은 ‘육’도 땅에서 <성자와 분체>를 맞고서 <휴거>를 맞고, ‘영’도 <성자와 분체>를 맞고서 <휴거>를 맞아 천국에 가게 된다.

58. 시대의 때를 맞았어도 ‘나태와 게으름’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59. 서두르고 재촉하는 자만 갖추고 성자를 맞게 된다.

60. 재촉으로 관리다. 서두르며 관리다. ‘자기’를 관리하고 ‘형제’를 관리해 주기다.

61. 종이냐, 형제냐, 애인이냐에 따라서 ‘말해 주는 내용과 차원’이 다르다.

62. <성약시대 신부들에게 하는 말>은 구약과 신약 때 하던 말과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63. 밭의 곡식도, 과수원의 과일도 다 뿌리고 가꿨는데, 마지막에 제때 못 거둬들이면, 모두 썩는다. 지금은 이와 같은 때다.

64. 갖추면 능히 휴거되는데, ‘작은 것들’을 안 갖추서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안타까운 육신이며 영혼이다.

65. 정신 차리면 다 갖추 수 있다.

66. 다 가르쳐 주었기에 무엇을 갖추야 하는지 다 안다. 그러나 알아도 행하지 못하여 못 갖추고, 탄식하는 자가 된다.

67. 마지막에는 ‘갖추기’다.

68. 갖추는 자는 그 주관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69.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갖추어라. 보다 하(下)차원에서 상(上)차원으로 올라라. <휴거>는 다른 세계로 옮긴다는 것이다.

70. ‘마음’으로만 상대를 사랑했던 자가 더 열심히 사랑하여 ‘상대의 육’과 일체 되었다면 <사랑의 주관권>이 옮겨졌으니 <사랑 휴거>가 된 것이다.

71.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삶의 휴거’를 이루려고 몸부림친다. 과거보다 더 좋게 되는 것이 희망이다. 자기 기쁨이다.

72. 자기가 과거에 조금 더 했다면 ‘삶의 휴거’가 되어 ‘삶의 이상’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조금 더 못 해서 ‘생활의 휴거’가 안 된 것이다.

73. 과거를 생각하면서,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휴거되기 위해 힘써 행하며 마지막으로 갖추어라.

74. 끝까지 ‘자기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수고와 시간 투자’다. 그런 정신이면 다 된다.

75. ‘희망’이 없으면, 갖추 수 있는데도 안 한다. 희망과 갖추기다.

76. 갖추므로 얻는 것이 천국이다. 꼭 갖추라.

77. 마지막으로 작은 것들을 갖추어 꼭 휴거돼라. <휴거>로 인해 얻는 것은 참으로 크고 영원하다.

78. ‘성자의 신부’가 됐느냐, ‘성자의 형제’가 됐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한 번 결정되면, 영원히 그같이 대하신다.
79. 육신을 썼을 때 ‘천국 형제,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면, 영원히 그같이 대우 받으며 살게 된다.
80. 지금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성자는 오직 ‘신부의 영’만 찾으신다. <형제 시대>는 2000년 동안 행하고 끝났다.
81. 신랑은 ‘사랑의 대상인 신부’를 찾지, ‘형제’를 찾지 않는다.
82. 오직 ‘신부’로서 ‘사랑의 대상’이 된 자만 신랑을 만나게 된다. 신랑을 만나 일체 되지 못하면, 여자끼리 살아야 된다.
83. 이 시대는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신랑 되신 성자’를 만나 일체 되는 시대다.

<2014년 9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개성’으로 태어나게 창조하시고, 개성대로 ‘재능’을 주어 창조하셨다.
2. 사람마다 ‘개성과 재능’은 각각 다르다.
3. <곡식>을 보아라. 쌀, 보리, 밀, 수수, 조, 각종 콩, 팥 등 생긴 대로 각각 ‘개성’이 다르다. 그리고 그 개성대로 각각 ‘모양’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다르다. 고로 이 곡식이 저 곡식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 곡식이어야 한다.
4. <과일>을 보아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딸기 등 생긴 대로 각각 ‘개성’이 다르다. 그 개성대로 각각 ‘모양’도 다르고 ‘품종’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영양가’도 다르다. 고로 이 과일이 저 과일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 과일이어야 한다.
5. <사람>도 지구 세상 70억 명의 개성이 각각 다르다. 사람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미’도 다르다. 고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대신하지 못한다.
6. 사람마다 개성과 재능이 다 다르니, ‘개성과 재능’대로 사명을 주고 일을 해야 천국이다.
7. <그 일>은 반드시 ‘그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 일을 못 한다.
8. <사명>이 ‘개성’이고 ‘재능’이다.
9. 사명대로 ‘개성의 왕’이 되고 ‘재능의 왕’이 된다.
10. 그 사명과 그 일에 맞는 ‘개성의 왕, 재능의 왕’을 찾아서 내 보내야 아무도 못 당하고, 선한 싸움을 하여 승리하고 돌아와 모두 같이 즐기고 잔치하게 된다.
11. 같은 호랑이와 호랑이가 ‘개성과 재능’이 다르다 함이 아니다. 토끼, 치타, 표범, 호랑이, 사자, 코끼리, 양, 염소, 독수리, 참새 등 종류에 따라서 각각 ‘개성과 재능’이 다르다 함이다.
12. 사자가 호랑이를 대신할 수 없고, 표범이 치타를 대신할 수 없다. ‘개성과 재능의 왕’이다.
13. 사람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개성과 재능의 왕’이기 때문이다. 고로 일을 할 때는 ‘각각 그 일에

합당한 개성을 가지고 재능을 가진 자'를 써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14.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개성과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고 키우셨다. 고로 그 일은 그 사람만 하지, 다른 사람은 못 한다.

15. 자기 개성과 재능대로 행해라. 그러면 이기고, 승리하고, 휴거도 빨리 되고, 모두 얻게 된다.

<2014년 9월 23일 화요일 새벽잠언>

16. 때가 되면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주시며, 개성대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이상세계>를 이루신다.

17. 이사야 11장 6절 이하를 보면, 각 동물들을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각 개성체가 모두 하나 되어 이상세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다.

18. 각 개성체들이 모두 하나 되되, 각자의 개성대로 사명을 맡고 일을 해야 <진정한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19. '소떼와 양떼'만이 별판의 잡풀을 다 먹어 없앨 수 있다. 호랑이나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별판의 잡풀은 못 먹는다. 호랑이와 사자는 육식을 해야 존재하는데, 풀만 먹고 살면 체질과 개성이 안 맞아서 죽게 된다. / 사람도 '자기 개성' 앞에 강하지, '다른 사람의 개성' 앞에는 약하다.

20. <이상세계>가 되려면, 각자 개성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모두 하나 돼야 한다. 서로 개성이 안 맞다고 싸우고 다투면 망한다.

21.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다 '개성과 재능의 왕'이다. 고로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해당되는 '개성의 왕'이 일을 해야지, 전체가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22. 모두 하나 되어 행하되, 개성대로 해야 승리한다.

23. <개성과 재능>이 '사명'이다. 그 일에 맞는 '개성의 왕'을 찾아라.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에는 전체가 하나 되어 도와줘야 된다.

24. <개성과 재능>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 고로 사람들을 '각자의 개성과 재능'대로 쓰지 않으면, <삼위의 개성체 창조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죄'가 된다.

25.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개성을 파악해서 '개성'대로 일을 맡겨 주의 일을 하게 해야 된다.

26. 지도자들이 '개성'대로 일을 안 맡기고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일을 맡기면, <무지의 죄>가 된다. 이것은 꼭 회개해야 된다.

27. '개성과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되고, 사고도 난다.

28. '개성과 재능'을 무시하지 말아라.

29. 예전에 일하다가 실수하고 쓰러졌어도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개성과 재능'에 따라서 또 일을 맡겨야 된다.

30. 지도자가 '개성과 재능'대로 사명을 안 맡기고 자기 생각대로 잘라 버리면, '자기의 희망과 교회의 희망'을 잘라 버리는 일이 된다. 무지 속에 상극 하면, 하는 일이 안 되고 괴롭다.

31. 사람은 개성체로 태어났다. ‘나무’로 해야 되는데 ‘돌’로 하면 안 되듯, ‘이 사람’이 할 일을 ‘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각각 ‘개성과 재능’이 다르다. 고로 <개성과 재능>대로 사명을 맡기고 행해야 잘되고 형통한다.
32.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의 재능자’를 시켜서 해야 된다.
33. 섭리가 각 기관도 각 교회도 ‘그 일의 재능자, 특기자’를 찾아서 그에 해당되는 일을 맡기고 써라. 그래야 잘된다.
34. 자기만 귀한 것이 아니다. ‘그 일’에는 ‘그 사람’이 개성의 왕이며 주인이다. 고로 ‘그 일’은 ‘그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야 ‘소원 성취’하고, 교회에 ‘희망’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된다.
35. <개성과 재능>대로 행하면, ‘휴거’도 빨리 된다.
36. <개성과 재능>대로 행하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37. <자기>는 지구 세상에서 딱 한 명뿐이다. 이것이 ‘개성’이다. 그 터전 위에 ‘재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 ‘재능’을 발휘할 사람도 세상에서 자기 한 명뿐이다.
38. 자기에게 속한 개성과 재능의 일은 ‘자기’가 왕이다. 고로 ‘자기’만 할 수 있다.
39. <자기 개성과 재능>을 ‘자기 희망과 재산’으로 삼고, <자기 일>은 자기가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성공한다.
- <2014년 9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40.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의 개성자, 재능자’만 그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고 발견한다.
41. <성자바위>에는 ‘일곱 가지 형상’이 있다. ‘한 위치’에서는 ‘한두 가지 형상’밖에 못 본다. ‘그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있어야 ‘그 형상’이 보인다.
42. <성자바위 정면>에 서 있는 사람은 ‘인독수리 형상’을 보고, <성자바위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각각 ‘성자 형상’과 ‘발바닥 형체’를 보고, <성자바위 뒤쪽의 왼쪽 측면>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보고, <성자바위 남쪽>에 서 있는 사람은 ‘성령님 형상’을 본다. 또 <성자바위 서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각각 ‘치타 형상’과 ‘팬텀기 형체’를 본다.
43. ‘각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개성’이다. 그 <개성의 위치>가 아니고서는 ‘그에 해당되는 형체’를 못 본다.
44. <성자 형상 쪽>에서는 평생을 봐도 ‘인독수리 형상’을 못 본다. 이와 같이 ‘그 일의 개성자, 재능자’만 그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45. <개성과 재능>은 위대하고 가치 있다.
46. <개성과 재능>은 왕권이며 보물이다.
47. <개성과 재능>은 능력이며 위대한 자본이다.
48. ‘그 일의 개성자, 재능자’가 그 일을 할 때,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힘이 되고, 자신감이 넘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그 사람은 할 수 있으니 함께하며 더욱 잘 행하도록 돕는다.
49. <교회>는 ‘보화가 묻힌 밭’이다. 밭을 깊이 갈아보고 ‘개성의 왕들’을 찾아서 개성대로 일을 맡겨라. 그래야 실패하

지 않고, 손해 보지 않고, 희망이 솟아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성공한다.

50. 그동안 기도한 것을 얻으려면, ‘개성의 왕’이라는 보화들을 찾아서 써야 된다.

51. ‘자기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여 휴거돼라. 성자가 주신 시대 ‘사명’을 해라.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고 이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신 뜻과 목적을 이뤄라.

52. ‘개성과 재능’을 더욱 개발하여 행해라. 그러나 끝까지 해라.

53.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 ‘개성자, 재능자’가 아니면, ‘그 일의 개성자, 재능자’를 찾아서 해야 된다. <구원과 휴거>도 그렇다.

54. 하나님은 ‘구원과 휴거의 개성자, 재능자’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를 키워 구원과 휴거를 이룰 말씀을 주셨다. 고로 그를 통해서 <구원>도 이루고 <휴거>도 이뤄야 된다. 자기는 ‘그 개성자, 재능자’가 아니기에 혼자서는 평생 해도 안 된다.

55. 눈, 코, 입, 귀, 손, 발, 허리, 심장, 신장 등 여러 지체와 기관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뇌가 하는 개성의 역할’은 할 수 없다. <구원과 휴거>도 이와 같다.

56. <개성의 왕>은 일을 할 때 완전히 다르다. 고로 승리한다.

57. 지도자들은 어서 <개성과 재능>대로 빨리 ‘달란트’를 나눠 주고 ‘사명’을 맡겨라. 그래야 배로 남기고 성공한다.

58. 주(主)는 사명을 맡기되 ‘개성과 재능’대로 맡긴다. 그러니 주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자기 개성과 재능’을 땅에 묻지 말아라.

59. 이단을 제외하고, 각 종교와 교파들은 시대에 따라서 <개성>대로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 목적과 뜻>은 오직 ‘새 역사 섭리역사’에서 이룬다.

60. 나무와 돌이 다르고 바다와 강이 다르듯, 구시대인들과 새 시대 섭리사에 온 자들은 다르다. <근본 사랑의 뜻>은 오직 새 시대에서 이룬다. 고로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며 해라.

6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깨우쳐 주시니, 극적으로 기도해라.

62. 자기 개성과 재능을 아는 자는 어서 ‘자기 개성과 재능의 일’을 하면서 빛을 발해라.

63. ‘자기 개성, 재능, 특성’을 구하고 찾아 사명을 하고, 성자와 분체와 함께 모두 하나 되어 섭리역사를 찬란히 펴 나가자.

<2014년 9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행해 주신다.

2. ‘<과거>에 성자가 너에게 해 주신 것’을 잊으면, <현재>에 성자가 너에게 행하시는 힘이 약해진다.

3. ‘<과거>에 성자가 자기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해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지고, <현재>에 성자와 일체 되어 성자가 더 크게 역사하신다.

4. ‘<과거>에 성자가 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성자와 멀어진다.

5. ‘<과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해 주신 것’을 잊어버린 채 ‘현재의 것’만 가지고 있으면 ‘첫사랑의 불’이 안 붙는다.
6. ‘<과거>에 성자가 자기에게 해 준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신앙’이 죽어가고 ‘불’이 안 붙는 것이다.
7. <과거 환난 때> 성자가 자기에게 해 주실 때는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불탔다. 그리고 환난이 지나가면 열심히 한다고 했다. 환난이 지나갔으니, 그때 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해야 ‘신앙의 불’이 붙어 성자가 더욱 역사하신다.
8. ‘<과거>에 성자가 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고 사니, 성자가 <현재>에 안 해 주시는 것이다.
9. 사람의 심리는 이러하다. <큰 것>이라도 ‘이미 해 준 것’은 희망을 가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앞으로 해 줄 것’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집중한다.
10. ‘<과거>에 해 준 것’과 ‘<현재>에 해 줄 것’을 함께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성자가 기뻐하며 더 주고 역사하신다.
11. <과거>에 그렇게도 많은 것을 해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고 성자가 새롭게 해 주기만을 원한다. 고로 ‘법칙’에 어긋나서 안 해 주신다.
12. <과거>에 성자가 무엇을 해 주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해라. 그것을 생각하며, <현재>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성자가 <현재>에도 주시고, <미래>에도 또 주신다.
13. <과거>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을 주셨는데, 그때만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끝난다. <현실>에 닥치면, ‘현실의 어떤 작은 것’에만 집중하며 산다. ‘과거에 해 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성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성자는 <현실>에 또 ‘새로운 것’을 주신다.
14. ‘과거에 해 준 것’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중심해서 불이 붙어 살아야 ‘첫사랑의 불’이 안 꺼지고 ‘현재에 새로운 것’을 또 받게 되고, ‘미래의 것’도 받게 된다.
15. ‘과거에 해 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성자를 사랑하지 않으니, 성자께서 ‘현재의 것’도 안 주시고 상황을 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16. 과거에 해 준 것을 잠깐 좋아하고 말았듯이, 현재에 또 해 줘도 잠깐 좋아하고 말 것을 성자도 주도 알기에 안 해 주는 것이다.
17. 성자와 주는 <과거>에나 <현재>에나 뜨겁게 감사하며 쓸 자에게 주신다.
18. ‘지난날에 해 준 것’은 <열쇠>이고, ‘현재에 해 줄 것’은 <자물쇠>와 같다. ‘지난날에 받은 것’을 생각하며 불붙여 그 열쇠를 통해 ‘현재에 받을 것의 자물쇠’를 여는 것이다.
19. <지난날> 산같이 바다같이 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면서, <현재>에 또 받으려고만 하느냐. ‘지난날에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불을 붙여 행해야 그로 인해 ‘현재의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고, 지난날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현실에 더욱 귀히 쓰며 기뻐하며 살게 된다.

<2014년 9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20. 성자와 혀가 닳도록 대화하고, 몸이 닳도록 사랑하며 같이 살아라.

21. ‘<현재> 신앙의 불’이 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이다.
22. <지난날> 성자가 목숨을 살려 주신 것,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구원하신 것 등 각종 수백 가지의 은혜를 잊고 살면 <현재> 신앙의 부도가 난다.
23. <과거>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 없다. <과거>에 성자도 주도 그렇게 돕고 한없이 해 주었기에 <현재>에 살아 있는 것이다. 지난날 해 준 것 생각하면서 현재에 감사하고 행하면, 문제 해결이다.
24. 하나님은 <지난날>이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 ‘지난날에 준 것’을 쓰면서,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불붙여서 열심히 해라.
25. ‘지난날 받은 것’을 쓰면서 불붙여라. 현재에 또 줘도 지난날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도 있으니 깨닫고, 새것만 달라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써라.
26. 사람들은 ‘지난날에 크게 받은 것’은 이미 쓰고 누렸으니,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생각한다. ‘현재의 것’만 크게 보지 말고 ‘지난날 받은 큰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27. 과거에 ‘큰 것’을 줬는데 귀히 여기지 않고 ‘현재의 것’만 중시하니, 뺏긴 것들이 많다. 지난날을 생각해라.
28. ‘현재의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과거의 것’이 된다. 그러면 또 잊게 된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받은 것’도 귀히 보고,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관리해라.
29. ‘과거에 받은 것’이나 ‘현재에 받은 것’을 잊고 살면, 말없이 불평이 일어난다. 매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써라.
30. 지난날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 본인만 아는 것이 많다. 분명 그것을 잊었기에 신앙이 죽은 것이다.
31.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에 귀히 쓰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32. <과거>라고 해서 ‘작은 것’만 주지 않았다. 때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때 합당하게 ‘큰 것’도 주셨다.
33. 과거에 어렸어도 그때 안 주면 못 주니, 그때 ‘큰 것’도 주었다.
34. 과거에 어렸을 때 죽음이 닥쳤는데, 아직 안 컸다고 살려 주는 큰 것을 안 해 주었겠느냐.
35. <과거>에 ‘큰 것’을 줬는데도 귀히 여기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현재>에 더 얻지 못하는 것이다.
36. <과거>는 마치 첫사랑과 같아서 ‘큰 것’을 주었다. 고로 첫사랑이 식으면 ‘큰 것’이라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7. 지난날 너를 지옥 흑암에서 이끌어 내 왔다. 왜 그것을 잊느냐.
38. <과거>를 잊으면 <현재>에 고난, 역경, 어려움에 처하게 하여 지난날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과거>를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뛰어라.

<2014년 9월 27일 토요일 새벽잠언>

39. ‘과거의 것들’은 이미 먹고 입고 써서 안 보이니,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고로 수시로 ‘과거에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라.

40. 지난날 ‘고래’를 쫓어도 먹고 없으니, 현재 ‘새우’를 먹으면서도 “더 큰 것이 없나?” 한다.
41. 하루는 ‘지난날 성자가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하니, 지난날과 연결되어 ‘현재에 새로운 큰 것’을 깨닫고 얻게 되었다. 지난날에 얻은 것보다 만 배나 큰 것을 얻었다.
42. 지난날 받은 ‘작은 수석’을 생각하며 수시로 감사하며 기뻐했더니, 성자는 ‘그보다 더 큰 수석’을 주셨다. 또 그 수석을 귀히 여기고 수시로 감사했더니, 성자는 ‘100배 더 큰 돌’을 주셨다.
43. ‘지난날 성자가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수시로 생각하며 감사해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44. 지난날 실 가닥같이 좁은 산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편히 다닐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성자께서 길 닦는 지혜를 주셔서 1m 되는 길을 닦고 편히 다니게 됐다. 그 길을 다니면서 늘 찬양하고 기뻐하며 “길 닦는 지혜를 주셔서 길을 닦고 편히 다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며 늘 감격 감사했다. 내가 여기 있어 그 길을 사용하지 못하니 <사진>을 보면서도 좋다고 하며 수시로 감사했다. 이에 성자는 불가능한 길을 넓게 닦아 차까지 다니게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 고로 더 넓은 길을 얻게 되었다.
45. 지난날 성자와 주가 얼마나 해 줬는지 하루해가 지고 밤이 오도록 생각하며 감사해 보아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46. 지난날 ‘큰 것’을 받았는데도 작게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뇌 차원>이 어렸기 때문이다. 이제 컸으니 다시 생각해 보아라. 지난날 성자께서 얼마나 큰 것을 줬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47. 지난날 ‘작은 것’을 받았어도 지금 다시 보아라. 10년, 20년, 30년이 흘렀기에 거목같이 컸다. 계산하고 감격해라.
48. ‘지난날 어린 자’도 다시 보고 ‘지난날 보잘 것 없던 것’도 다시 보아라. ‘인생 거목’이 되고 ‘큰 것’이 되었으니, 귀히 써라.
49. ‘현실의 것’은 눈에 보이지만, ‘과거의 것’은 눈에 안 보이니 생각에서 멀어져서 작게 보이는 것이다.
50. ‘지난 것’에서 ‘현재 큰 것’을 찾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51. 지난날에 받은 ‘바늘’을 통해서 현재 ‘철장대’를 찾게 된다.
52. <성자바위>를 사진으로 보면서 “성자 형상, 인독수리 형상이 있으니 정말 신비합니다. 감사해요! 기적과 표적으로 얻게 됐어요.” 하며, 1년 동안 감사하며 귀하게 봤다. 그리고 “<성자바위>만 한 ‘하나님 형상 바위, 성령님 형상 바위’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본 돌 중에는 없었어요. 만일 있다면, <성자바위>와 같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는 자들이 모두 놀라서 보고 또 보겠어요.” 하고 상상하며 성자에게 간구했다. 과거에 받은 것을 귀히 보니, 성자는 <성자바위> 안에서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을 또 발견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성자 형상, 인독수리 형상, 치타 형상, 팬텀기 형상, 성자 발바닥 형상’ 이렇게 일곱 개의 형상을 발견하게 됐다. 지난날 성자에게 받은 은혜와 선물을 잊지 말아라. 매일 보고 감격 감사해라.
53. ‘지난날에 준 것’ 안 쓰니, 다시 잡초 땅이 되듯 하는 것이다. 찾아보아라. 과거에 무엇이었는지 보아라. 거기에 ‘성자가 주시는 사람’도 있고 ‘성자가 주시는 물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54. ‘지난날에 준 것’을 자꾸 써야 안 잊어버린다.
55. <과거>는 마치 ‘1층 건물’과 같다. 1층이 있음으로 인해 2층, 3층도 짓게 됐으니 항상 1층, 2층, 3층을 다 관리하며 써야 된다.

56. 지난날에 행해 주신 표적들을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영광 돌려야 그로 인해 현재에 또 표적이 일어난다.

<2014년 9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의 핵>, <사랑의 근본>은 '뇌 사랑'이다.
2. '육체 사랑'은 '뇌 사랑'의 저 밑에 있는 사랑이다.
3. '뇌' 속에 '육체'도 포함되어 있다. '뇌 사랑'을 해야 '육'도 따라간다. 하나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뇌 사랑>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수십억 가지를 다 사랑하는 것이 되어 수십억 가지로 다양하게 사랑을 누린다.
5. '뇌'로 사랑하면 수백만 가지를 얻게 된다. '뇌'로 사랑하여 매일 육적으로 영적으로 얻어라.
6. <뇌>를 통해 '만물 사랑, 환경 사랑, 인간 사랑, 말씀 사랑,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사랑의 눈'을 떠라.
7. 구시대 행사의 징조는 성자가 떠나시는 징조다. 성자가 한 번 가시고 나면, 또다시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는 다시 안 오신다.
8. '이성 죄'는 죄지은 것의 100배 형벌을 받고 올라와야 복직된다. 고로 '이성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휴거를 짓몽개는 격이다.
9.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이는 사랑이 날개가 되어 날아오른다는 말이다. 그런데 타락하여 사랑의 날개가 부러졌으니, 날아지겠느냐.
10. <휴거 선>이 낮으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거나 지도자 사명을 가지고 있어도 '이성'으로 쉽게 넘어진다.
11. <휴거 200>선을 넘으면 그만큼 강해서 사탄도 이기고, 꺾는 자도 이긴다.
12. 실적이 없으면 실족한다.
13. 성자를 사랑으로 배신한 자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없고, 사탄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를 깨닫고 회개해라. 그리고 '천국의 땅'을 침노해라. 미련한 자는 매일 육신의 삶을 살면서 '지옥의 땅'을 침노한다.
14. '육체 사랑'에 빠져서 제 갈 길로 가다가 후회하고 돌아온다 해도 용서하며 받아 주지만, 구원을 받기에도 휴거를 이루기에도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이를 깨달아라.
15. 지능이 낮으면, '육체 사랑' 한 가지만 본다.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수억 가지를 본다.
16. 근본적으로 <뇌 사랑>을 해야 수백 가지로 다양하게 사랑하며 얻고 즐긴다.

<2014년 9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을 통해서 '영혼'을 만들어 나간다. 고로 이 땅에서 보면 '육신'이 귀하고 대단하다.
2. 그러나 인간의 <근본>을 보고 <결과>를 보면, 결과는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니 근본적으로는 '영혼'이 귀하

고 대단하다.

3. ‘육’이 귀한 것은 ‘육의 행위’를 통해 ‘영혼’이 만들어지기 때문이고, ‘영혼’이 귀한 것은 결국 ‘영혼’이 영원히 남아 지기 때문이다.

4. 결국 ‘영혼’이 영원히 남아지니, 매일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5. 네 ‘육신의 삶’을 보아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6. 육신이 ‘육적인 것’만 추구하며 ‘성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면, 그 영은 미래가 없이 <사망>으로 끝난다.

7. 육신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을 위해 살아야 그 영이 <영원한 희망과 사랑의 세계>를 차지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8. 너는 ‘사랑의 본질’을 무엇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9. 사람들은 <사랑> 하면, ‘육체관계로 인한 흥분과 기쁨’만 생각한다. ‘육체관계’가 없으면 사랑의 핵이 무엇이냐고 한다.

10. 만일 ‘육체적 관계’가 <사랑의 핵>이고 <사랑의 본질>이라면 ‘육체적 관계’가 불가능한 나이든 사람들과, 아기들과, 어린아이들과, 성적인 것을 모르고 깨끗이 사는 자들과, 성자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은 <사랑의 핵>과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된다.

11. 하나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육체관계의 사랑’이 아니다. 그래도 하늘까지 닿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육체적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근본적 최고의 사랑’이다.

12. ‘육적 사랑의 지체’가 근본이 아니다. 기쁨과 흥분은 ‘뇌’에서 느낀다. 고로 하나님은 ‘뇌신경’에 자극을 주어 사랑을 느끼며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13. 사랑의 본체는 ‘뇌’다.

14. ‘육체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15. ‘육체적 사랑’은 기쁨이 매우 적고, 사랑의 강도도 매우 약하다.

16. <사랑의 본체>인 ‘뇌’는 그 기쁨이 무한하고, 그 강도가 엄청나게 세다.

17. ‘뇌 사랑, 정신 사랑’은 육신이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라도, 육신이 나이 들어 늙어도 ‘생각’에 따라서 무한대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고로 그 사랑의 기쁨은 ‘육’으로만 따져도 육이 살아 있는 기간인 100년 동안 간다.

18. ‘육체적 사랑’은 기간도, 시간도, 기쁨의 강도도, 사랑의 강도도 극히 한정되어 있다.

19. <육체>로 흥분하고 기뻐하려면, ‘육적 지체’로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뇌>로 사랑하면 ‘나무나 돌 등 만물’이나, ‘세상 학문’이나, ‘물질’이나,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 등 수백만 가지로 사랑을 맺고 사랑할 수 있다.

20. ‘나무 사랑, 돌 사랑, 물 사랑, 작품 사랑, 환경 사랑, 말씀 사랑, 주님의 일 사랑’ 등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통해 기쁨을 누리며 살면, 그만큼 흥분되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도 ‘육체관계의 사랑’이 아니다. <하늘>은 ‘신랑 격’이고, <땅의 인간>은 ‘신부

격'으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주체'로 삼고 사랑하며 '사랑의 뜻'을 이룰 수 있다.

22. 모든 기쁨과 흥분을 느끼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뇌'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체관계의 사랑'을 안하시고, '뇌 사랑, 정신 사랑'을 하신다. 고로 사랑이 무한하고, 사랑의 강도가 엄청나게 세고, 영원하다. <천국 사랑>도 이러하다.

23. 근본인 <뇌>에 '시대 말씀'을 꼭 채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꼭 채우고 사니, <육신>도 절대 삼위와 보낸 자를 따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 <영혼>도 그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2014년 10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온 세상이 '육체 사랑'으로 좌우되는 줄 알고 있다. 고로 '육체적 사랑, 성적 사랑'에 빠져서 살고 있다.
2. <뇌> 기능을 중지시키면, 아무리 '하체 사랑'을 해도 못 느낀다. 모든 것은 <뇌>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3. <사랑의 핵>, <사랑의 본질>은 '뇌'다.
4. 수천만 가지의 모든 사랑과 기쁨과 흥분은 '뇌'를 통해 느낀다. 고로 '뇌'를 통해 사랑을 이뤄야 된다. 이것이 '귀하고도 귀한 황금 보석 사랑'이다.
5. 하나님은 '육적 하체 사랑'을 중시하지 않으신다. '뇌 사랑'을 중시하신다. 고로 나이든 노인들도, 어린 소년 소녀들도, 성적인 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도, 오직 주를 위해 인생을 맡기고 사는 자들도 모두 <뇌 사랑>을 알고 극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하셨다.
6. <육체 사랑>은 '번성'과 '육의 지체를 창조한 목적'에 쓰여질 뿐이다.
7. <육체, 성적 지체>는 '한두 가지의 기능'만 한다. 육체로만 흥분하고 느끼며, 생명을 잉태하는 역할만 한다.
8. <뇌>는 '수백억 가지의 사랑의 기능'을 한다. 정신적으로 나무나 돌 등 만물도 사랑하고 환경도 사랑하면서 그로 인해 각각 흥분을 느끼고 기뻐한다. 그리함으로 자기 혼도 영도 기쁘게 한다.
9. <뇌>는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극이 되고 흥분되어 말씀과도 사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혼도 영도 기뻐한다.
10. <뇌>는 그림을 그릴 때 자극을 받고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그림과도 사랑한다.
11. <뇌>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흥분하면서, 음식과도 사랑한다. 그때 혼과 영도 그것에 정신을 쏟게 되고, 그에 따라 엔도르핀이 화산처럼 폭발한다.
12. <육체, 성적 지체>는 '말씀'과 사랑하지 못하고, 나무나 돌 등 '만물'과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림'이나 '음식'과도 사랑하지 못한다. <육체 사랑>은 극히 한정적이다.
13. 인간이 먹고 사는 음식은 수백만 가지다. <뇌>는 수백만 가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하체>는 음식과 관계하지 못하니, 기쁨을 못 느낀다. 만일 음식과 관계하면서 '육적 사랑'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것이다.
14. <뇌>는 먹는 음식만 가지고도 수억 가지로 흥분되고 기쁨을 느끼며, 사랑의 엔도르핀이 발생한다.

15. 선생은 잠언 한 가지만으로도 <뇌>로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말씀과 사랑’하여, 4만 개 이상의 잠언을 썼다.
16.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신 것이 수백만, 수천만 가지이니, 그것들을 사랑하며 ‘사랑의 기쁨’을 누릴 것은 무한대다. 이것을 모르니 ‘육체 사랑, 하체 사랑’만 하면서 “음란물을 보면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성적 지체를 안 쓰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한다.
17. 모르면 가르쳐서 알게 해 줘야 된다.
18. 하나님과 성자께서 ‘말씀의 붓’을 준 자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모두 알고 살라고, 강하게 말씀을 써서 전한다.
19. 선생은 성자에게 배워서 <만물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만물’을 사랑하여 월명동에 사연 있는 돌들과 나무를 갖다 놓았고, 호수를 만들고, 잔디성전을 만들고, 길을 내고, 정자를 세우고, 뜻있는 땅을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개발해 났다. 그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생활 속에서도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라고 하늘 언어를 가르쳐 주었다.
20. 모두 <사랑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생각이 더러운 자들이나 악평자들이나 마귀의 꾀에 빠져 저질적으로 사는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꾀어서 데리고 가는 곳은 <사망>이며 <지옥>이다.

<2014년 10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뇌는 병으로 굳고, 정신적으로 굳으면 회복이 힘들다.
2. 병으로 굳은 뇌는 순환을 시켜 회복시키듯, 정신적으로 굳은 뇌는 아는 것으로 순환시키고, 악한 것은 선한 것으로 순환시키고, 육적인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영적인 것으로 순환시켜야 된다.
3. ‘뇌’가 굳은 대로 ‘행동’이 굳어서 산다.
4. 뇌는 깨닫고 몸에게 지시한다.
5.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마음’은 뇌의 이름과 같다.
6. 사람의 각 지체를 보면 눈, 코, 귀, 입 등 지체마다 이름이 있다. 이와 같이 뇌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마음’이라 칭한 것이다.
7. <뇌>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에 따라 작동한다.
8. <뇌>는 육적으로는 귀로 들을 때보다 눈으로 볼 때 더 강하게 자극을 받고 작동한다.
9. <뇌>는 영적으로 영계를 볼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하여, ‘영혼의 뇌’가 강하게 느끼고 작동한다. 이때 ‘육의 뇌’도 느끼고 작동한다.
10. <육의 세계>는 ‘눈’을 감으면 못 보고 ‘귀’를 막으면 못 듣는다. 그러나 <영의 세계>의 것은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보이고 들리고 깨닫게 된다.
11. <뇌>가 ‘사랑의 과일’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한다. <뇌 과일>은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형태가 다르니, 쓰는 방법도 다르다.
12. <뇌 과일>은 먹을 때 ‘생각’으로 먹는다. 고로 ‘영적 과일’이다.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으로 행하면서 먹는다. 생각한 것을 느껴서 먹는다는 것이다.

13. <뇌의 생각>이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면, 뇌로 사랑한 것이다.
14. <뇌의 생각>으로 성자와 대화하고 깊은 이야기를 했다면, 성자와 사랑한 것이다.
15. <뇌의 생각>으로 형제를 사랑했다면, 뇌로 사랑한 것이 된다.
16. <뇌의 생각>으로 사랑하면, ‘육체’도 사랑한 것이 된다.
17. <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랑은 ‘영적 사랑’, <몸>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랑은 ‘육적 사랑’이다.
18. <뇌의 생각>이 영적으로 성자를 사랑했다면, 그 ‘육신’도 성자를 사랑한 것이다.
19. <뇌 생각 사랑>이 먼저 되니, <육>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20.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 <뇌 사랑>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는 <육 사랑>을 하게 된다.
21. 성자는 육적으로도 계시하신다. 그러나 신령한 계시, 영에 속한 계시는 ‘뇌’에 주시어 깨닫게 하신다.
22. 계시를 주는 성자에게 <뇌의 생각>을 집중해야, 뇌에 성자의 계시를 받게 된다.
23. 초등학생 때와 10대 때는 ‘작은 것’도 크게 이상적으로 보인다. <뇌>가 어려서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보고 듣고 잘 놀라고 감탄한다.
24. <뇌>가 어리고 크지 않았을 때는 ‘작은 집’도 크게 보인다. 그래서 감탄을 많이 하고, 잘 놀라기도 한다.
25. <뇌>는 ‘영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쏠리면 영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육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쏠리면 육적으로 보인다.
26. 깊은 것도, 높은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도 <뇌>로 생각하면 깨닫는다. 즉 <영적>으로 생각하면 깨닫는다는 것이다.
27. 성자가 우리를 사랑으로 잡는 것보다, 우리가 뇌와 마음과 생각으로 성자를 잡아야 잡힌다. 자기가 해야 성자가 잡힌다.

<2014년 10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생각’으로 느끼는 것은 <뇌>로 느끼는 것이고, ‘행동’으로 느끼는 것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다.
2. <몸>으로 느끼면 ‘살’로 느끼니 하나만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면 ‘뇌신경’으로 느끼니 100배 더 느낀다.
3. 몸과 몸이 달아 느끼는 것은 ‘살’로 느끼니 둔하게 느낀다. 생각해서 뇌로 느끼는 것은 살의 근본체인 ‘뇌신경 덩어리’로 느끼니, 뇌신경은 몸보다 더 예리하니 10배, 100배 더 느끼게 된다.
4. 생각으로는 남녀가 <몸>으로 사랑하면 천국같이 느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이는 ‘살’로 느끼기에 그러하다. <생각>은 ‘뇌신경’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니, <생각>으로 사랑해야 더 사랑을 느낀다.
5. <살>로도 느끼는데, 이는 살에 ‘뇌신경’이 미세하게 뻗어 나가 있기에 살로도 그나마 느끼는 것이다.

6. <살>도 뇌신경이 뻗은 대로 느낀다.

7. 고로 성자와의 사랑은 <뇌 사랑>이다. 성자는 육체가 없다. 영체다. 고로 '마음·정신·생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뇌에 생각하는 대로 성자를 느끼는데, 그 느낌은 육이 느끼는 강도보다 100배 이상이다. 그러므로 '몸'도 느끼고 '살'도 느끼게 된다.

8. <뇌>는 신비하고 웅장하다. 연구하여라. 저마다 뇌가 있으니,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만 하지 말고, 몸의 주인인 <뇌>를 살피라.

9. <뇌>가 움직이면 <몸>도 움직여진다. <뇌>가 안 움직이면 <몸>도 안 움직여진다.

10. 성자를 <생각>으로 사랑하라는 말은 <뇌>로 사랑하라는 말이다.

11. <뇌>는 생각하는 대로 수백 가지를 느낀다. <몸>은 '뇌의 생각'을 따라서 하도록 숙달시키고 연단하고 단련하면 된다.

12. 먼저 <뇌>를 정상으로 만들어라. 생각은 뇌에서 발생하니, 뇌를 정상으로 만들면 생각도 이상적이다.

13. 생각으로는 '저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한다. 그러나 막상 먹어 보면 생각보다 맛이 없다. 실상 음식이 맛있는 것이 아니다. '뇌'보다 신경이 둔한 '몸'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몸'은 뇌의 생각보다 둔하니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14. 자기가 앞날의 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실제 몸으로 겪어 보면 그 고통이 적다. 몸으로 겪는 것은 뇌로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는 못 느낀다.

15. <뇌와 마음>으로 행하면 몸보다 100배 자극을 받고 느끼고, <혼과 영>으로 행하면 1000배 더 자극을 받고 느낀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이시다. '영체'이시다. 영체 전체는 마치 뇌신경처럼 예민하고 확실하게 느낀다. 영계에 가서 보고 듣고 느껴라. 그러면 마치 뇌가 느끼듯이 온몸 전체가 다 느낀다.

17. <뇌 체질>과 <몸 체질>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뇌'로 느껴라. 뇌는 생각으로 움직여서 느낀다. 그러면 생각한 것처럼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만족하며 느낀다.

18. '육체의 살'로 느끼는 것은 한 개라면, '신경 덩이인 뇌'로 느끼는 것은 100개다. 신경 덩이인 <뇌의 생각>으로 느끼면 100개를 느끼고, <혼체>로 느끼면 1000개를 느낀다.

19.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할 때는 '뇌의 마음·정신·생각'으로 통하게 된다. 고로 그 느낌이 극적으로 강렬하다. 고로 <뇌>로 사랑하여라.

20. 형제도 <뇌>로 사랑하여라. 근본 사랑이 된다.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체 사랑>은 몸과 몸이 닿을 때만 느낀다.

2. <뇌 사랑>은 생각만 해도 '뇌'라는 지체에 시동이 걸려서 자체에서 활동하면서 느낀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뇌 사랑>이다. 이것이 '근본의 핵의 사랑'이다.

4. 사람들은 만족함을 느끼려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만족을 못 느끼니 행해도 곤고하게 산다.
5. 사람들은 기쁨, 희열, 자극을 크게 느끼려고 마약·술·담배를 하고, 성적 생활, 명예 생활, 각종 예술 생활 등을 한다.
6. 술도, 담배도, 마약도, 이성도 몸에 닿아 신경을 건드릴 때만 느낀다. 술로 느끼려니 중독되도록 마시고, 담배로 느끼려니 줄담배를 퍼 대고, 이성으로 느끼려니 이성을 계속 만나고 성에 중독된다. 그러다 결국 '육체'가 망가지고, 그에 따라 '마음과 혼과 영'도 망가져 버리게 된다.
7. '뇌'는 무한대다. 생각하는 대로 육보다 100배 더 느낀다. '혼'으로 더 느끼고, '영'으로 더 느껴라.
8. 기도하여 네 '혼과 영의 몸'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닿게 하여 최고로 느끼며 살아라.
9. '뇌'는 신경으로 되어 있어서 최첨단으로 느낀다. 혼체같이 느낀다. 고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느끼며 살도록 기도하고 성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10. 새벽에는 몸이 가만히 있으니, 생각하면서 뇌로 느낀다. 고로 깊이 생각된다.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도 <뇌의 생각의 눈>으로 보면 어디 있어도 다 보인다. 보고 좋으면 시동을 걸어라. 그러면 뇌는 작동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마음>에서 느낀다.
11. 자기가 원하는 대로 <뇌의 생각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려면, 거기에 맞게 뇌를 작동해야 된다.
12. 뇌로 사랑하는 것은 실상 남녀가 몸으로 사랑하는 것과 같다. 뇌는 살이다. 몸이다. 지체다.
13. 뇌를 가지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실제로 남녀가 사랑할 때 뇌세포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몸과 살도 움직이듯 한다. 그러니 '뇌 사랑'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되, 뇌가 움직이면 몸도 행하니 <제2의 육체 사랑>과 같다.
14. 뇌가 이성의 생각을 하며 사랑하는데도 뇌세포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남녀가 생각만 하고 몸을 가만히 두는 것같이 느낌도, 흥분도, 자극도 없다.
15. 남녀의 <육체 사랑>은 뇌의 마음과 생각이 몸에 전달되어 몸이 움직여 행해지는 것이다. <뇌 사랑>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데, 뇌세포가 움직여 생각하면 그 결과로 뇌에서 흥분의 호르몬이 분비된다.
16. 뇌를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면, 성삼위의 영체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

<2014년 10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그 한 가지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
2.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어느 때는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고 실수한다. 고로 일을 하고도 후회한다.
3. 계획한 일을 할 때나 자기가 좋아서 행할 때나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꼭 확인하고 행해라.
4.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선 급하다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 한 가지'만 목적하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겨서 손해도 가고, 고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이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5. ‘목적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다치고, 고생하고, 손해를 본다.
6. 목적지로 가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빨리 달리다가 차 사고가 나서 일순간에 중상을 당하여 불구가 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죽기도 한다.
7. 문 닫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손가락을 놓고 문을 닫다가 크게 다친다.
8. 건물을 빨리 짓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다가 부실하게 지어 건물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다.
9. 나무에 올라가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
10. 배에 사람을 많이 태워서 돈을 버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배의 구조를 변경하여 운행하다가 배가 침몰하여 수백 명씩 참사를 당한다.
11. 한 가지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고 행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구원받으려고 따르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게 하고 멸망으로 가게 한다.
12. 한 가지만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 신상’만 믿고 살다가 수천 년 동안 구름같이 많은 영혼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
13.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육적’으로만 살다가 <육>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영>을 구원하지 못하여 <영>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만들고 있다.
14.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다가 <영>이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다.
15. 한 가지만 보고 하면,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겨 고통도 오고, 손해도 보고, 허무하게 죽기도 하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된다.
16. 이 시대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지 않고 ‘사람’만 보고 행하다가 ‘자기를 구원할 자’를 막고 괴롭히고 핍박한다. 그 행위대로 받게 되니, 회개치 않으면 영원한 지옥을 면치 못한다.
17. <재림과 휴거>를 ‘육적’으로만 생각하며 성경을 해석하다가 그토록 기다리던 <재림과 휴거>를 맞지 못하고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다.
18. <재림과 휴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통해 ‘영적’으로도 하고,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육적’으로도 한다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믿고 행한 자들은 <육>도 휴거되고 <영>도 휴거되었다.
19. <성경>을 볼 때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풀면 ‘다른 한 가지’는 손해다. 육적으로만 풀면 <영>이 손해이고, 영적으로만 풀면 <육>이 손해다.
20. 사람에게에는 <육>도 있고 <영>도 있으니,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육도 영도 손해 없이 잘 되고 형통한다.

<2014년 10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한 가지는 해결되지만,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2. 사람을 관리할 때도 ‘한 가지 잘못’만 보고 관리하면 한 가지는 해결되지만 그로 인해서 실수도 하고, 생명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3.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체와 상대, 앞과 뒤, 양과 음’ 두 가지를 보고 확인하고 행해라.
4. 절대자 하나님의 법칙은 ‘주체와 상대’ 양면성이다.
5. 어떤 일을 하든지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면’이 있다. 고로 항상 ‘앞과 뒤, 양과 음, 선과 악’ 양면을 보고 해야 된다.
6. 어떤 일을 할 때는 ‘선’만 보고 처리하지 말고, ‘악’이 해를 주지는 않는지 보고 처리해라. 한쪽만 보면 실수하고 해를 당한다.
7. 사람을 대할 때도 ‘단점 한 가지’, 혹은 ‘장점 한 가지’만 보고 대하지 말고 ‘단점과 장점 두 가지’를 보고 대해라.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8. ‘일 한 가지만’만 생각하고 일만 하지 말아라. 일하면서 ‘건강’도 생각하며 살피라. 그래야 병과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한다.
9.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 한 가지’만 생각하고 ‘기름’은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여 실패하고 <주>를 맞지 못하고 끝났다.
10.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당한다.
11.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육적인 자’이며, ‘형이하학적인 자’이며, ‘지능이 낮은 자’다.
12. 두 가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는 ‘영적인 자’이며, ‘형이상학적인 자’이며, ‘지능이 높고 두뇌 차원이 높은 자’다.
13. 밭의 풀을 뽑을 때도 ‘풀 뽑는 것 한 가지’만 생각지 말고, ‘곡식’도 뽑히지는 않는지 꼭 봐야 된다. 이와 같이 ‘전도된 자의 모순’을 없애려다가 ‘구원받으러 온 자’를 내보내게 되기도 하니, 꼭 ‘두 가지 양면’을 보고 행해라.
14.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 한 가지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실히 계산하고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해라.
15. 땅벌에게 쏘였다고 땅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고 손이나 도구로 벌집을 내치다가 수백 마리의 벌 떼에게 쏘여 죽게 된다.
16.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는 자들은 화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일순간 운명이 바뀌어 목숨을 뺏기기도 한다. 한 가지만 생각지 말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때에 맞춰서 해라.
17. 인생 <육>만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안 믿고 살다가는 <영혼>을 잃고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
18. 인생 편하게 살려고 각종으로 ‘할 일’을 안 하면, 얻는 것 없이 오히려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된다.
19. 인생 편하게 살려고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병을 얻어 건강을 뺏긴다.
20. 골리앗 장군은 ‘다윗’만 생각했지, ‘다윗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행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어리거나 장성했거나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싸워도 안 되고 그들에게 해를 줘도 안 된다.

21.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각 나라 왕들이 무지하여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지탄받고, 일을 저지르고,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사형에 처하여 죽고, 갖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그 무지함이 역사에 길이 남아졌다.

22. 어떤 나라의 왕은 잘하는 일이라고 하며 수십조를 투자하여 궁을 건설했으나, 안 할 일인데 하여 미친 짓을 했다고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23. 지구 세상에서 살면서 호흡하는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만 보고 행하는 자들은 이제 또 그 행위의 대가를 받게 된다.

<2014년 10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악평자들과 핍박자들은 예수님 때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악’을 이어받아 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들이 됐다.

2.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한 행위대로 그 영들을 사망에 처하게 하셨다.

3. ‘의인의 주권, 구원자의 주권’은 참으로 크다. 성경 말씀대로 그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영원한 권세다.

4. 하나님은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는 권세를 주지 않고 무색하게 하신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면, ‘사망이 왕 노릇 하는 권세’뿐이다.

5. 시대 보낸 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개인·민족·세계의 선악 간의 모든 것을 목숨 걸고 하나님께 고한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정한 날에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 하며 선고하신다.

6.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다 들으시지만, ‘악인의 간구’는 듣지 않으신다. ‘악인의 간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 들으신다.

7. <의인>은 영원하고, <악인>은 1년 살고 죽는 잡초와 같다.

8. ‘생각한 것 한 가지’만 보고 행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을 보고 행해라.

9.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것’이다. 곧 <기도>다.

10. 악평자나 핍박자들이나 세상으로부터 역올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이 천군들을 통해서 공의롭게 행하시도록 기도해라.

11. 악인들과 악평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지만, 그 행위대로 그 <영>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 영향으로 <육>도 이를 갈며 산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12. 섭리사에서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니, 하루에도 수천 건씩 문제가 일어난다.

13. 매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실수 없이 착오 없이 빨리 휴거된다. 실수하면, 휴거가 배나 늦어진다.

14. 우선 쓰기 바쁘다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돈을 다 써 버리지 말아라. 아무리 축복을 해 줘도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늘 빈곤하게 된다. 신부라면, 감사해라.

15. 우선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여 성자와 주께 확인하고, 본인도 연구하고 ‘다른 것’도

생각하면서 행해라. 그래야 해를 당하지 않고 잘되고 형통한다.

16. ‘날파리 없애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충제 반 통을 뿌리다가 ‘성자의 계시를 전하는 만물의 계시자 귀뚜라미’까지 죽였다.

17. 화가 나서 남은 살충제를 다 뿌려, 혹시라도 남은 날파리들을 다 멸종시키려 했다. 그리고 30분 후에 화장실 문을 열어 보니, ‘새끼 귀뚜라미 한 마리’가 살아서 벽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살충제 한 통을 거의 다 뿌렸는데도 안 죽고 살았으니 표적이다.

18.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해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그같이 역사하시고, 너를 그같이 보호하고 지킨다.

19. 하나님이 지키시면 절대 살리신다!

20.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과 역울함을 당하고, 악한 자들의 꾀와 악평 속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뜻있는 자’는 반드시 살리신다.

21. 그렇게 살충제를 뿌렸어도 살아난 <새끼 귀뚜라미>는 ‘악평과 핍박을 이긴 자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22. ‘하나님과 성자를 위해 사는 자들’과 ‘주를 절대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겪더라도 ‘새끼 귀뚜라미’같이 살게 하신다. 그리고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2014년 10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계획한 일을 하기 전에 그 한 가지 일을 함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정말 확인하고 행해라.

2. 계획한 일을 할 때는 꼭 ‘두 가지 이상’ 생각하고, 이상이 없으면 행해라.

3.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반드시 상대적인 다른 편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해가 된다.

4. 절대 ‘진리’를 믿고 ‘구원자’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랑하여 지키는 자들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누가 악평하며 비원리의 말을 해도 신앙이 안 죽고 산다.

5. 사람들은 몰라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안 할 것’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여 손해도 보고 화도 당한다.

6. 사람의 뇌는 어떤 것에 꽂히면 그것으로만 작동되어 돌아간다. 고로 ‘한 가지’만 보고 행한다. 그러니 그 일이 뇌에 꽂히기 전에 먼저 분석하고, 그것을 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두 가지 이상’을 보고 확인하면서 행해라.

7. 한 가지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먹고, 입고, 사고, 팔지 말아라.

8.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죽는 것’도 생각해라.

9. ‘장점’만 생각하지 말고 ‘단점’도 생각해라.

10. ‘선’만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해라.

11. 말을 할 때도 ‘속 시원히 말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막말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잘 말해라.

12.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할 때는 더 다른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저질러 버린다. 아무리 ‘자기가 좋

아하는 것’을 행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것까지 꼭 생각하고 행해라.

13. 한 가지만 생각하고 “먹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좋아서 행하면, 그로 인해서 꼭 문제가 생긴다. 두 가지를 보고 합당하게 하는 자가 문제없이 실수 없이 얻고 누린다.

14. 돈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막 쓰지 말아라.

15. 설교할 때는 ‘노력과 공적을 쏟는 기회의 때’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불을 줄 때’다. 그러니 설교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외쳐라.

16. 새벽기도는 꼭 해야 된다. 새벽기도를 안 하면, ‘성자와의 만남’이 없으니 사랑이 멀어지게 된다. 그로 인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

17. ‘돈 버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그로 인해 오는 위험’이 있으니 꼭 생각하고 행해라. 잘못하면 돈을 벌다가 신앙을 탈선하기도 하고, 이성에 빠지기도 한다.

18. 사탄의 주관을 받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형제를 시기 질투하거나 오해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둬 가신다.

19. 술은 ‘독약’이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는 것도 ‘독약’이다.

20. ‘이것’을 하면 ‘저것’이 문제인 것은 아닌지, 자세히 파악하고 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21. 지금 실수하면 <휴거>가 늦어진다.

22. ‘실수’는 대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다가 하게 된다.

23. 우선 급하다고 ‘육신의 삶 한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실수하고 <휴거 길>에서 탈선되면 안 된다.

24. ‘시대 보낸 자’를 볼 때도 한 가지만 보고 따르면 오해한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보고 따라야 된다.

25.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앞날의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된다.

26. ‘죄’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여 올라와라.

27. 늦었다고 <휴거>를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은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최고로 함께하며 도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서 부지런히 행하여 <휴거 300선>을 이루어 <황금성>을 차지해라!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생각>이 자기를 더럽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든다.

2.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더럽게 하면, <생각>이 더러워진다.

3.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깨끗이 하면, <생각>이 깨끗해진다.

4. <생각>과 <몸>을 쪼개서 보아라.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육으로 짓는 죄’가 있다. 또 ‘생각과 육이 같이 짓는

죄'가 있다.

5. <생각>을 다스려라!

6. <자기 생각>을 완벽하게 다스려라. '불의의 생각'을 못 하게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못 하게 해라.

7.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

8. 아무것도 아닌 것, 누가 버린 것도 '처음 보는 것'이면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인다.

9. '호기심'을 없애라. 모르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를 주는데도 '그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호기심을 떨치지 못하고 행하게 된다.

10. 인생은 몰라서 실수하고, 몰라서 문제를 일으키고, 몰라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

11.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매일 배우고, 삼위가 보내어 인생을 가르치는 자에게 매일 배워라. 인생 모르면,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지구'만큼 얻고 살 것인데 '초가집'만큼만 얻고 고생하다가 죽는다.

12. 전능자는 <세상 육의 것>도 <하늘 영의 것>도 다 가르쳐 주신다.

13.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도 크다.

14. '그 주관권'에 있으면 '그 주관권의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그 주관권'을 벗어나라.

15. 성자의 시대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진하여 <생명길>로 가면, 탄 생각을 안 하게 된다.

16. 제 갈 길을 못 가는 자는 '각종 필요 없는 생각'에 뒤엉켜 살아야 된다.

17.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가야 된다.

18. 늘 '성자'께 물어보아라. 늘 '성자의 육'에게 묻고 행하여라.

19. 잡아서 방에 둔 '메뚜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나중에 보니, 빈 컵에 빠져서 거기서 못 나오고 죽어 있었다. '유혹'에 빠지면 <영>도 죽고, <육>도 사망권의 삶을 살게 된다.

20. <생각>을 잘못하면 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21. <생각>으로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22. <생각>이 빠지면 <몸>도 빠져 면역이 되고 습관이 되어 살게 된다.

23. <자기 생각>을 구원해라!

24. <자기 생각>이 '필요 없는 곳'에 빠지지 않게 항상 살피라!

25. 답은 간단하다.

26.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되나?' 먼저 생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야 된다.

27.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생각>으로 먼저 그것을 확인해라. 그러면 <자기 혼>이 가서 보고 <자기 생각>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충분히 분석하고 계산해라. 그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행해라.

28. 인생, ‘목적지’로 가다가 ‘목적지와 상관없는 작은 일’만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목적지’로 못 가고 중간에 머물러 살다가 끝난다.

29. ‘목적지’를 보고 가라. ‘목적지와 상관없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적지’가 되어 끝난다.

30. <기획>은 서 있지 않는다. 자기 앞으로 지나갈 뿐이다.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실수’는 ‘하나의 실패’다.

2.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다른 한 가지 모르는 것’을 실수하게 된다.

3. 가령 ‘파리와 모기’만 잡겠다고 약을 뿌리면 그것은 잡지만, ‘기르는 곤충들’도 같이 죽는다.

4. 밭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뿌리가 얽혀 뽑아진다. 가을까지 놔뒀다가 곡식이 다 익으면 ‘곡식’만 추수하면 된다.

5. “왜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지 않으실까?” 한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악과 선’을 겸하고 있다가 점점 ‘악’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 <과정 중>에 심판하면, ‘성장하고 있는 자들’까지 심판에 해당되어 다 죽게 된다.

6.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행하신다.

7.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행하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과 대화하실 때는 대개 ‘그 사람의 뇌’를 통해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감동>을 <자기 생각>으로 생각한다.

9.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역사하신다.

10. <육적인 자>에게는 ‘육적’으로 역사하시고, <영적인 자>에게는 ‘영적’으로 역사하신다.

11. <육적>으로 가면 ‘육으로 얻은 것’을 누리다가 ‘육’에서 끝나고, <영적>으로 가면 ‘영으로 얻은 것’을 누리다가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가서 연속 누린다. ‘영’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육’도 누리게 된다.

12. 사람은 <생각>이 빠지는 데로 <몸>도 그 세계로 가게 된다.

13. 물질, 명예, 땅, 건물, 돈, 여자, 남자, 종교, 학문, 예술, 문화, 환경 등 <자기 생각>이 빠지는 데로 <몸>도 거기에 처해 살게 된다.

14. ‘온전하신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빠지면, <황금성 천국>에 오르게 된다.

15. 뇌 차원이 낮은 자는 “만족한다.” 하고, 뇌 차원이 높은 자는 “부족하다.” 한다.

16. <만족>은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다 갖춰져야 하게 된다.

17. 고로 뇌 차원이 낮은 자는 그 수준만큼 어느 정도 갖춰지면 “만족하다.” 하지만, 뇌 차원이 높은 자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다 갖춰지지 않으면 “부족하다.” 하는 것이다.

18. 만족해야 기쁨이 온다.

19.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다 갖춰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한다.

20. 마음에 쏙~ 들어야 만족한 것이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마음에 쏙~ 들어야 만족하고 기뻐하신다.

22. <역사>는 ‘과정’에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완성’돼야 만족한다.

23. <성약역사>는 완성하는 역사이기에 ‘땅의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 만족하고, ‘성삼위’도 만족하여 기쁜 세계가 된다.

24. ‘차원이 낮은 자’는 만족해도 ‘차원이 높은 자’는 만족하지 못한다.

25. 인간은 ‘자기 차원’대로 만족을 누리고 산다.

<2014년 10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마음>은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수시로 변한다. ‘자기 환경과 처지’가 바뀌니 변하고, ‘다짐했을 때의 감동’을 잊어버리니 변한다.

2. <인간의 뇌>는 다짐하고 맹세해도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 작동한다.

3.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생각이 변화무쌍하다.

4. 사람은 감동받고 깨달을 때 다짐하게 된다. 고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매일 다짐해야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5. <다짐한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고 변하지 않도록,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구해 놓아라.

6. 사람은 말할 때나, 느낄 때나, 볼 때나, 들을 때는 감동되어 다짐한다. 그러다 그 후에는 <뇌의 생각>이 흐려지고 <마음>이 약해진다. 그때는 다시 말하고, 다시 보고, 다시 들어야 된다.

7.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다. 그러다 기도가 끝나면 ‘환경과 처지’가 바뀌니, 다짐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변한다.

8. 사람은 ‘볼 때’와 ‘안 볼 때’의 생각이 다르다. 고로 자꾸 봐라. 자꾸 들어라. 자꾸 기도해라. 자꾸 성자와 교통해라.

9.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가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다짐한다. 그러다가 거기서 나와 세상을 쳐다보면, 다짐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변해 버린다.

10.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세상의 비’에 ‘자기 마음’이 점점 젖어드는 줄 모르다가 결국 ‘세상’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 수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접해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는 꼭 승리한다.

11. 매일 다짐했는데도 못 지키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다. 마음이 병들어서다.

12. <실천하는 것>이 돈이다. 황금이다. 권세다. 사랑이다. 휴거다.
13. <게으른 자>는 얻기를 원해도 ‘눈 구경’이나 하고 ‘마음’으로만 느끼는 것에 만족하고 끝난다.
14. 너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 너 자신이다.
15. ‘자기 자신’이 자기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얻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16. ‘주’를 속이고 ‘성자’를 속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사탄’이 영원히 속이며 괴롭힌다.
17.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만이 성공한다.
18. 행하지 못하는 자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다. 아직 행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지옥 고통’을 더 받아 봐야 행하게 된다.
19. 행해라. 행하지 않으니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행하지 않으니 ‘생명력’이 없다. 행하지 않으니, 행함으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속 힘들다 하며 머물러 있게 된다. 절대 ‘실천자’만이 승리하게 된다.
20. 너는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나와 같이 ‘실천자’가 되자!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새벽잠언>

1. 하나님도 성자도 ‘구할 마음’이 있으면, 매질을 하면서라도 끌고 가신다.
2.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떤 자는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어떤 자는 ‘종’같이 부리면서 끌고 가신다.
3. 신부 자격이 안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들을 ‘나무’로 보면, 집 짓는 데 귀히 쓸 재목이 아니라 ‘떨감’으로 쓸 재목이다.
4. 길을 낼 때 우선 급한 대로 아무렇게나 내면, 평생 그 길을 사용하며 고생한다. 그 후에 다시 길을 내려 하면, 2~3배 더 수고해야 된다. 이왕 자기를 만들 것이면, ‘신부’로 완벽히 만들어라.
5. 세상만사 모든 것이 적당히 해서는 <최고 차원의 것>을 얻지 못한다. <천국 황금성>도 적당히 해서는 못 간다.
6. <천국 황금성>은 ‘신’이 돼야 간다.
7.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다.
8. <천국 황금성>은 천 리 길에 한 명도 가기 어렵다. 그곳은 ‘천국의 최고 위치의 성’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룬 대가로 주는 성’이다. ‘영원히 신부 대우를 받고 성삼위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이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진리와 사랑의 승리’를 하여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완전히 만든 자들의 영만 갈 수 있다.
9. <황금성>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룬 자들에게만 준다.
10. 1년 내내 수고하여 농사지은 과일나무에 ‘온전한 과일’이 적게 열렸어도 ‘온전한 과일’만 거둬들인다.

11. 이와 같이 <황금성>에 가는 영들이 적다고 해서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도 않았는데 아무에게나 <황금성>을 줄 수는 없다.
12. 아무나 구원하고, 아무나 휴거시키고, 아무에게나 <황금성>을 준다면, 누가 성삼위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며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만들겠느냐.
13. ‘타락한 자’가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게 산 자’와 같겠느냐.
14. ‘만들어지지 않은 자’가 ‘어떻게 만든 자’와 같겠느냐.
15. 똑같이 <주>를 믿고 살아도 ‘자기 삶을 중심하여 사는 자’와 ‘주 앞에 자기 인생을 바치며 주의 일을 하며 사는 자’와 같겠느냐.
16. 똑같이 <주의 일>을 해도 ‘적은 조건을 세운 자’와 ‘더 많은 조건을 세운 자’가 같겠느냐.
17.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대해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18. <성약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적다고 해서 <저 기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신부 자격’을 줄 수 있겠느냐. 그같이 안 한다. 누구든지 <성약역사>에 와서 <성약말씀>을 듣고 <시대 보낸 자>를 100% 믿고 따르며 ‘이 시대에 맞게 행하는 자들’에게만 ‘신부 자격’을 준다.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해라.
19. <휴거>를 귀히 여겨라.
20. <휴거>를 무슨 휴가철에 휴가 가듯 생각하고, 공휴일에 휴식하듯 생각하느냐. 일반 사람들은 ‘휴거’라는 단어도 못 쓰게 하신다.
21. 하나님은 <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로 주지 않으신다. 오직 ‘새 역사에 와서 신부로 온전히 만든 자들’에게만 <휴거>를 허락하신다.
22.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 휴거된다 생각하고, <휴거>를 귀히 여기고 어서 자기를 만들어라.
23. 10만 명 중에 ‘너 한 명’을 불러왔다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라.
24. ‘자기’가 안 하면 여지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좃대가 옮겨져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라.
25. 휴거된 자들도 휴거됐으나 휴거 안 됐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라. 그러면 <휴거 300선>을 넘어서 <천국 황금성>에 ‘자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더 만들어지고 세워진다. 이것은 사실이다!

<2014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물질도 없고, 환경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목숨 걸고 해도 성공하기 어려우니, <천국 황금성>을 얻으라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휴거>를 소홀히 여기고 안 하니, ‘영원한 복’을 제 발로 차 버린 애석한 자들이다.
2.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아느냐. <영원한 천국>이 어떠한지 정말 알고 있느냐. <휴거>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성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시대 보낸 자>가 누구인지 정말로 아느냐. 정말로 진실로 안다면, 네가 그리 살지 않으리라. 정말로 진실로 안다면, 그깟 TV, 게임, 소셜, 음란물, 이성, 세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지 않으리라. 모르니, 그리 사는구나. 이런 자들은 계획적으로 휴거시키지 않는다.

3. 너희는 <성자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모르니, ‘공주’처럼 대해 주고, ‘황태자’처럼 대해 주고, ‘천하의 귀한 왕비’처럼 대해 줘도 가치를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구나.
4. <뇌 차원>이 낮고, <시대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서 가치를 모른다. 당연한 결과다.
5. 세상이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하나, 길바닥에 나앉아서 ‘가을 별판의 역새’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 보면, 그제야 깨닫고 ‘주’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주’가 얼마나 자기를 귀히 대해 줬는지 알게 되리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느니라.
6. 기회를 줘도 안 하면 <주>는 ‘다른 자’를 불러서 정녕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다. 그리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라.” 하며, 하늘의 법대로 행한다. ‘하늘의 때’는 됐고 ‘갈 길은 머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같이 할 수밖에 없다.
7.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자’와 ‘보낸 자’를 귀히 보고 마음 변하지 않을 자가 있는지, 턱을 고이고 땅을 내려다보신다.
8. 별것도 아닌 인생을 살면서 전능자 앞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별의별 오해를 다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사는구나. 그러다 별의별 고통을 다 당하고 살게 된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돌이키지 않은 연고다.
9. 미련한 자에게는 ‘매’다. ‘채찍’이다.
10. ‘전능자’와 ‘보낸 자’를 업신여긴 죄는 그 값이 너무나 크다.
11. 미련한 자라도 만들면 <신부>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고 믿고 행하여 자기를 만든 자는 <신부 자격자>가 되어 쓰임받는다.
12. ‘만들었다.’함은 무엇이나.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함이다.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다.’ 함이다.
13. 잡초 동산이었던 월명동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었다. 만들어 놓으니, 월명동은 영원히 잡초 동산으로 변하지 않는다.
14. 진짜 만들면 변하지 않는다.
15. 진짜 만든 자는 변하지 않는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16. 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7. 육과 혼과 영을 안 만든 자가 <천국 황금성>에 가겠느냐. 안 만든 자는 ‘천국 문’도 구경 못 한다.
18. ‘자기 혼과 영’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도록 온전히 만들어야 <천국 황금성>에 간다.
19. 성자가 한 번 떠나시면, 다시는 땅에 안 오신다.
20. 성자가 떠나시는 길에 한 걸음 멈추고 속 이야기를 하시니,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행해라.
21. <황금성>을 귀히 여기고, <휴거>를 귀히 여기고, 너를 택하여 불러서 <신부로 삼은 것>을 귀히 여기고, <분체>는 성자의 육이며 성자께로 가는 안내자이니 귀히 여기고, <성령으로 인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고,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귀히 여겨라.

22. 네 몸도 귀히 여기고, 함부로 쓰지 말아라.

23. 네 생각도 귀히 여기고, 뇌 속에 아무것이나 넣고 살지 말아라.

24. <성자의 말씀>은 '생명이 사는 배'와 같고, '배고파 죽어 가는 자 앞에 양식'과 같으니라.

<2014년 10월 16일 목요일 새벽잠언>

1. 마치 '할 일'을 못 하면 '갈 길'을 못 가는 것과 같이, '죄'를 지으면 '자기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을 못 가게 된다.

2. 작든지 크든지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갈 길'을 가게 된다.

3. 죄를 지은 것은 사고 나서 다친 것과 같다. 사고가 나면, <치료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고 났는데 그대로 쓰면, 아파서 못 한다.

4.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줘도 꼭 <회개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근신 기간>이며, <치료 기간>이며, <회복 기간>이다.

5. 아담이 범죄 했을 때 자신과 후손까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4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당세에는 뜻을 못 펴니, 하나님은 후에 후 아담인 '예수님'을 세워서 뜻을 이루셨다.

6. 예수님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지었다. 고로 그 후손들까지 2000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다시 제3의 아담을 세워서 <재림의 역사>를 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7.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 하자. 다친 만큼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는 당장 뛰지 못한다. 그 사람이 치료할 동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되어서 뛰게 된다.

8.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다친 것과 같아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 죄를 지은 만큼 <근신 기간, 회복 기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는 그 자리의 사명을 다른 자가 하게 된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도 죄를 안 짓고 뛰는 자가 있기에 그가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치료가 끝난 자는 다른 위치에서 뛰게 된다.

9. <용서>는 금방 해 주되, '행실'로 조건을 세우며 꼭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치료된다.

10. <자기 때>가 있다. 그때 죄를 지어서 못 하면 못하고 끝난다.

11. 전자가 못 하니, 후자가 하게 된다.

12. 이성 죄를 지은 자도 아파서 수술한 자와 같아서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며 근신하는 기간'이다. 고로 자기 사명을 못 하니, 그 자리에 신앙이 건강한 자를 배치하여 대신 뛰게 한다.

13. 죄를 회개하고 근신한 후에 복직하면,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가서 뛰게 된다.

14.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 주께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죄에 대한 <치료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15. <치료 기간>은 '행실로 깨끗이 회개하는 기간'이다. 행실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말한다. <치료 기간> 중에 또 죄를 지으면, 마치 암을 수술했는데 재발한 자와 같아서 회복이 힘들다.

16. <근신 기간, 치료 기간> 중에는 100% 치료해야 된다. 곧 '죄 안 짓기'다.

17. 병이 없는 자가 건강하듯이, 죄 안 짓는 육과 혼과 영이 건강하다.

<2014년 10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8. 사람을 택할 때는 <뇌>를 택해야 ‘좋은 사람’을 택한다. <몸>을 보고 택하면 <좋은 사람>을 택하지 못한다. <뇌>가 좋아야 <육>도 <혼>도 <영>도 좋기 때문이다.

19. <뇌>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야 된다.

20. 하나님도 <뇌>를 보고 사람을 택하신다. <중심>을 보고 택하신다. <그 중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보고 택하신다. ‘이성, 물질, 세상 사랑’에 중심을 두고 사는 자는 택하지 않으신다.

21.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사랑’에 중심을 두고 사는 자는 <뇌 사랑 열매>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고로 그의 육의 삶도, 혼도 영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된다.

22. 육적인 자는 ‘하체’를 발달시키고, 영적인 자는 ‘뇌’를 발달시킨다.

23. <하체>는 ‘땅’으로 가고, <뇌>는 ‘천국’으로 간다.

24. <육체 사랑>은 ‘만 번’을 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영적 사랑>을 ‘한 번’한 것도 못 따라온다.

25. 하나님과 성자와 ‘한 번’만 사랑을 맺었어도 자기만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성자의 사랑의 몸>이 된다. 사랑을 맺고 변한 자는 다시 맺기 전까지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회개, 용서, 복직’이 100% 돼야 한다.

26. 한 번 구원받고 상실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27. <구원의 단계>도 여러 단계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하(下) 차원 구원 중(中) 차원 구원 상(上) 차원 구원>이 있다. 자기 행위대로 구원받는다.

28. 매일 ‘자기 구원’을 더 좋게 이루어라! 육신이 매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매일 변화돼야 더 좋은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을 때 휴거된다.

29. 메시아는 <구원>을 위해 말씀을 준다. <휴거>를 위해 말씀을 준다. 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의를 쌓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라. 이는 구원받고 휴거될 자들이 해야 할 것이다.

30. 세상에서 잘산다 해도 다 똑같은 차원이 아니다. 차원이 다 다르다. 더 잘하면 더 잘산다. 이와 같이 <신앙의 삶>도 더 잘하면 끝없이 변화되어 ‘더 좋은 차원의 구원’을 얻는다.

31. 월명동 자연성전도 20년이 넘도록 더 개발하고 더 수고하니 해마다 더 좋게 변화되어,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신비하게 되었다.

32. 월명동의 소나무들도 해마다 퇴비를 주면서 키우면, 더 변화되어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1000년 동안 크면서 ‘작품’으로 변화된다.

33. 이와 같이 <자기 영>도 계속 변화시켜라. 기회는 이때다! 육이 살아 있을 때가 기회다. 성자가 떠나시기 전이 최고의 기회다.

34. <자기 영>을 ‘휴거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족해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된다.

35. 막연한 말이 아니다. 하나의 이론의 말이 아니다. <자기 혼>을 보아라. ‘혼의 상태’는 곧 ‘영의 상태’이고, ‘육의 상태’는 ‘혼의 상태’다.

36. 3일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해 보아라. 그리고 나서 <자기 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보아라. 어떤 일도 3일 동안 열심히 하면 표가 나듯, 3일 동안 결심하고 열심히 행하면 <혼>도 표가 나게 변화되어 있다.

37. 자기에게 ‘죄’가 있는지 <혼>으로 보여 달라고 기도해라. 죄 있으면 안 된다. 그 죄 때문에 휴거가 안 되기 때문이다.

38. 고장 난 차를 다 고쳤는데 한 군데만 안 고쳐도 그로 인해 전체가 또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는다. 인생도 이와 같다. ‘죄’가 남아 있으면, 그로 인해 곧 ‘갈 길’을 못 간다. 고로 3일만 계획적으로 기도하여 ‘자기 죄’가 남아 있는지 보아라. 죄가 있으면, 사탄이 죄의 줄로 꼭 매고 있다.

39.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근본적인 회개를 안 했다. 그 혼을 영계에서 보니, 혼의 한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3년 전에도 묶여 있었는데, 아직도 묶여 있었다. 본인이 <자기 죄를 보는 단계>까지 못 올라가니, 못 보고 근본적인 회개를 못 한 것이다. 그러다가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왜 이제 회개하느냐.” 했더니, 잊어버려서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깊이 기도하니 생각나서 회개한다고 했다. 성자에게 그 죄를 고해 주고 용서해 주었다. 그 대신 꼭 전도하고 조건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 혼을 보니, 손에 매인 쇠사슬이 풀려 있었다.

40. ‘자기 죄’가 그냥 있는지, 모두 확인해 보아라. 3일이라도 계획적으로 기도하면 보여 주신다.

41. <휴거된 자>라도 ‘육’은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매일 회개해야 된다. 매일 점검해야 된다.

42. <새 차>도 쓰다 보면 고장 나게 된다. 고로 쓰면서 점검해야 된다. 이와 같이 <휴거된 자>도 매일 점검이다.

43. 결혼하고도 ‘이성의 죄’를 짓게 되니, 매일 이성을 경계하고 자신을 점검하며 지켜야 된다. 이와 같이 성자의 신부가 되어 성자를 사랑하며 살아도 ‘이성의 죄’를 짓게 되니,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2014년 10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44.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갈 길’을 못 가고 ‘할 일’을 못 하니 손해다.

45. 죄를 안 지으면 ‘갈 길’을 하고 ‘할 일’을 하니, 매일 유익이다. 죄를 안 짓는 자는 빛이 없는 자와 같고, 아프지 않은 자와 같고, 사탄과 상관이 없는 자다. 행하는 대로 유익이다.

46.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할 일’을 하면 생명이 유실되고, 유익도 없고, 공적도 없고, 성자도 주도 그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47. ‘죄의 몸’으로 행하지 말고, 깨끗이 회개하고 치료하여 ‘의의 몸’으로 행해라.

48.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할 일’을 하면, 깨진 그릇에 물 붓기와 같다.

49. 섭리사에 오기 전에 지은 죄도 다 고해야 된다.

50. <회개>는 ‘생명’이다. 회개하는 자는 산다.

51. <회개>는 ‘사랑’만큼 좋은 것이다. 회개하면 사랑이 온다.

52. 사명을 하다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도 계속해서 사명을 못 할까 봐 고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성자는 다 아시고, 그 짓값을 계속 받게 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의를 쌓아도 죄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살고, 죄의 몸으로 행하니 오히려 육과 혼과 영이 손해다.

53. 어떤 사람은 ‘이성 죄’를 짓고, 그 값을 한다고 죄를 고하지 않고 전도만 열심히 했다. 성자는 그를 책망하시며 “왜 네 죄를 고하지 않고, 내가 보낸 자가 너로 인해 더 형벌을 받게 했느냐. 죄는 용서해 주되, 고하지 않았던 날만큼 조건을 세워라. 치료해라.” 하시며 <7년 근신 기간>을 주셨다. 구약 4000년을 축소하여 <4년 개인 근신 기간>을 주어 ‘육성’을 고치고, 신약 2000년을 축소하여 <2년 개인 근신 기간>을 주어 ‘마음과 생각과 혼’을 고치고 치료하게 하고, 성약 1000년을 축소하여 <1년 개인 근신 기간>을 주어 ‘신부의 조건’을 세우라고 하셨다. 이렇게 해서 총 ‘7년’이다. 그러나 목숨 걸고 하는 자는 <3년 6개월>, 혹은 <1년>으로 근신 기간, 치료 기간 축소시켜 준다. 이 기간은 ‘육성’을 고치고, ‘마음과 혼’을 고치고, ‘영’을 고쳐 ‘신부로서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다. 죄를 짓고 1년, 3년, 7년이 늦어지니 얼마나 큰 손해냐. 고로 그때는 ‘다른 자’를 세워서 하니, ‘자기 영광의 자리’를 뺏기게 된다. 고로 죄를 짓지 말고, 또 죄를 지어도 혼자만 열심히 하지 말고 빨리 고하고 회개한 후에 열심히 하여라.

54.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몸에서 ‘노폐물’이 나온다. 고로 매일 씻어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생활의 죄’가 나온다. 고로 매일 기도하여 꼭 처리해야 된다.

55. 신부는 ‘정결’이 생명이다. 팔방미인도 씻지 않으면, 냄새 나서 멀리하기 바쁘다.

56. 어떤 사람은 성자의 신부가 될 자인데, 더러워서 안 되었다. 성자는 ‘깨끗한 자’를 찾으신다.

57. 몸도 얼굴도 미인인데, 매일 하수 처리장에서 살고 있다. 어서 회개하여 네 가치를 빛내라.

58. <지옥>은 ‘쓰레기 세계’다. 지옥 불에 태워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죄의 냄새도 지독한데, 죄가 없어지지 않고 냄새가 폴폴 나니 고통이다. 세상에서 메시아에게 죄를 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그 짓값으로 지옥에 간 것이다.

59.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간다.

60.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간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한 자’가 간다. 천국은 깨끗하여 ‘먼지 하나’를 영원히 찾아볼 수가 없다. ‘쓰레기 하나’를 주우려 찾아봐도 없어서 못 줍는다. 이런 깨끗한 세계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회개해라! 그리함으로 죄의 근거도 없게 하고, 공적을 세워라!

61. ‘자기 마음’을 <천국>이 되게 하려면, ‘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하기가. ‘뇌’를 깨끗하게 하기가.

62. 사탄은 죄를 안 짓는 자에게는 존재하지 못한다. 사탄은 <죄>를 ‘밥’으로 삼고 ‘진수성찬’으로 삼고, 그것을 먹으며 존재한다.

63. 죄를 지으면 자포자기하게 된다. 그래도 회개하고 생명길을 가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음부와 지옥으로 내려간다.

64.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섭리사에서 살기 힘드니 기성에 가서 산다고 하며 나갔다. 성자께 말하니, “기성이든 섭리역사든 나 성자가 다 행하는 역사인데, 여기서 지은 죄를 기성에 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없어지겠느냐. 여기서 깨진 계란이 기성에 간다고 복직되겠느냐.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고, 새 시대가 오면 ‘죄 문제’는 나 성자가 오직 사명자를 통해서 총지휘한다.” 하셨다. 그 영을 보니 바로 사망에 처해 있었고, 지옥사자들이 그 영을 차지하고 있었다.

65. <주>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러 왔다.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면 평생 못 만나고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와 같이 영계에서도 한 번 만났다가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는 자가 있다.
2.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만났을 때가 기회의 때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한 번 만나기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만났을 때 인연을 맺지 않고 일체 되지 않으면 ‘육신 일생 동안 평생’ 못 만나기도 하고, ‘영이 영원히’ 못 만나기도 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만났을 때 인연을 맺고 일체 되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5.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가 있고, 우리가 간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있다. 어떻게 해서 만나든지 만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절대적으로 인연을 맺고 일체 돼야 한다.
6. 지금 이 시대는 <성약시대>다. 새 역사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만났으니, 삼위와 떨어지지 말고 일체 되어 휴거되어 살아라.
7.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같은 한 해’이라도 봄과 여름이 섞일 수 없고, 여름과 가을이 섞일 수 없고, 가을과 겨울이 섞일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고, <시대>도 그러하다.
8. 봄이 가야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야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야 겨울이 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 신약 성약’이 있는데, 이 세 역사는 한 몸과 같지만 섞여서 퍼 나갈 수는 없다.
9. <구약>이 가야 <신약>이 오고, <신약>이 가야 <성약>이 온다. 역사는 이어져 오지만, 각각 따로 존재한다.
10. <한 몸>이라도 눈, 코, 입, 귀, 목, 손, 발, 팔, 다리, 허리 등 각 지체는 ‘생긴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이와 같이 <구약 신약 성약>은 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로서 ‘한 혈통’이지만, ‘시대’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구원의 차원과 위치’도 다르다.
11. <구약 신약 성약>은 시대가 다르니, 지금 태어난 사람이 옛날 시대에서 살 수 없고,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서 살 수 없다.
12. 제 시대에 태어나서 ‘그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13. <구약역사>는 ‘율법을 중심한 종 시대’로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시작된 역사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의 차원에 맞게 역사하시면서, 4000년 동안 구약역사를 펴 나가셨다.
14. <신약역사>는 ‘신약말씀을 중심한 아들 시대, 자녀 시대’로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작된 역사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시대의 차원에 맞게 역사하시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약역사를 펴 나가셨다.
15. 신약역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시대 차원에 맞게 이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를 펴 나가신다.
16.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진행되는 역사’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차원’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이 시대에 행하시는 휴거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17. <구약>은 ‘육’이 <구약 육계>에서 살다가 ‘영’이 <구약 영계>로 가고, <신약>은 ‘육’이 <신약 육계>에서 살다가

‘영’이 <신약 영계>로 가고, <성약>은 ‘육’이 <성약 육계>에서 살다가 ‘영’이 <성약 영계>로 간다.

18. 육도 영도 자기가 행한 대로 가고, 만든 대로 살고, 만든 대로 거기에 해당되게 얻고 가지고 간다.

<2014년 10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9. <자전거, 자가용, 비행기>는 ‘같은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차원’도 다르고, ‘쓰이는 곳’도 다르다. 이와 같이 <구약, 신약, 성약>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이나 ‘시대와 차원’이 다르다.

20. <그저께, 어제, 오늘>은 같은 올해이지만 날짜가 다르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저께>와 <어제>와 <오늘>을 각각 살아간다.

21. <그저께>와 <어제>는 ‘지나간 과거’다. 지나간 과거는 그때 살고 끝난 것이다.

22. <오늘>을 사는 자가 얼마나 희망 있느냐. <그저께>와 <어제>까지 살았어도 <오늘>을 살지 못하면 희망은 끝난 것이다.

23. 세상은 ‘오늘 사는 자의 세상’이다.

24. <구약>은 그저께와 같고, <신약>은 어제와 같고, <성약>은 오늘과 같다.

25. ‘그저께’라는 <구약역사>는 4000년 동안 펴 오다가 끝났다. ‘어제’라는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펴 오다가 끝났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오늘’이라는 <성약역사>부터 앞으로 1000년 동안 새 역사를 펴 나가신다.

26. <구(舊)역사>는 ‘구역사의 주관권’에서 살아간다. <구역사>는 이미 끝났기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새 역사>를 행하신다.

27. <새 역사>가 오기 전에는 ‘구역사’에서 ‘새 역사’를 펼 수 없다. <새 역사>를 맞으려면, 반드시 ‘새 인물’을 맞이하고 ‘새 역사’로 와서 ‘새 말씀’을 들어야 된다.

28.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구약역사>였다.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새 역사 신약역사>가 시작됐다.

29. 아무리 40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여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역사’로 와야 ‘새 역사 구원’을 받았다.

30. 구약역사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만 믿어도 안 되고, 반드시 ‘새 인물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약역사’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해야 구원을 받았다.

31. 이 시대도 그러하다. 신약역사에 있으면서, 다른 종교에 있으면서, ‘섭리사 말씀’만 갖다가 쓰면 ‘이 시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반드시 ‘이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면서 ‘성약역사’로 와서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해야 ‘시대 구원’을 받는다.

32. 섭리사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기존 교리에 끼워 넣고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시대 주인’이 없으니 ‘남편 없는 여인’과 같다.

33. 이단들은 ‘새 역사 섭리사’에 오지 않고 ‘섭리사 교리’만 갖다가 쓴다. - 이는 마치 <고급 차>를 보고 좋으니, ‘덤프트럭에 고급 세단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 <비행기>를 보고 욕심나니, ‘자기 차에다가 비행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격’이다. - <비행기 부속품>을 도둑질하여 ‘자기 차에 매달고 다니면서 자기 차의 부속품이라고 하는 격’이다.

34. 더러운 자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다.

35. <시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에만 맞고, 시대 주인을 100% 믿고 따르고 가는 자가 행할 때 만 효력이 있고, 그들만 그에 해당되는 휴거를 이루고 간다.

36. <새 시대 말씀>을 도적질해다가 전하여 믿고 따르며 행해도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시대 주관권에서 녹슨 것만 닦아 낸 정도다. 고로 그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37. ‘시대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 <새 시대 말씀>만 도적질해다가 전하며 행하는 것’은 참감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고욤나무에 옷 입히듯 하는 격이라서 ‘참감’이 열리지 않는다.

38.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섭리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리겠느냐.

39.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새 시대 섭리사 말씀’을 행해야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인 격이 되어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린다.

40.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

41. 어떤 사람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을 보고 가서, ‘고욤나무’에 ‘고욤나무’를 접붙였다. 3년을 정성 들여 길렀지만, ‘참감’은 열리지 않았다.

42. <접붙이는 원리>는 같아도 고욤나무에 고욤나무를 접붙이면 ‘고욤열매’만 열린다.

43. <접붙이는 원리>만 가져다 쓴다고 ‘참감’이 열리겠느냐. <접붙이는 나무>가 ‘참감나무’여야 ‘참감’이 열린다.

44. <접붙이는 원리>는 ‘새 역사 말씀’이다. <참감나무>는 ‘시대 보낸 자’다. ‘새 역사 말씀’만 가져다 쓴다고 해서 ‘구원과 휴거의 참감’이 열리겠느냐. ‘시대 보낸 자’를 믿어야 ‘구원의 참감’이 열린다.

45. <참감 역사>는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의 욕’을 ‘참감나무’로 만들어서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 <참감 역사>, <참진리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46. 종교는 한 번 그 종교에 뿌리박으면 그것의 씨가 되어 ‘육 평생, 영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47. 새 시대로 다시 태어나려면,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듯 ‘시대 보낸 자’를 믿고 따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해라.

<2014년 10월 22일 수요일 새벽잠언>

48. <과거 구시대 역사>는 이미 끝났다. 고로 희망도 끝났다.

49. 지금 진행 중인 <새 시대 역사>는 지금 이루고 있다. 고로 ‘희망’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

50.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는 이미 다 하고 끝났다. 이미 지난 <구시대>에서는 단 하루도 ‘새 시대 역사’를 펼 수 없다.

51. 반면 <새 시대 섭리역사>에서는 1000년 동안 단 하루도 ‘구시대 구약역사’도 ‘신약역사’도 펼 수 없다. ‘과거에 끝난 역사’는 하루도 안 하고 ‘새로 받은 역사’만 평생 이룬다.

52. ‘지나간 것’은 이미 그것으로 끝났기에 더 좋게 하지 못한다. <그저께>와 <어제>를 이미 살고 그것으로 끝났는데, <오늘> 어떻게 어제를 다시 좋게 할 수 있느냐. <오늘>은 오늘 좋게 만들고 사는 것이다.
53. <과거에 끝난 것>은 ‘죽은 몸’과 같다. 죽은 몸은 다시 살릴 수 없다. 이와 같이 <과거에 끝난 구시대 역사>는 ‘죽은 것’과 같아서 이 시대에 다시 펴 수 없다.
54. 지금은 ‘현재와 미래’만이 남아 있다.
55. 이미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 어미 태 속의 삶’은 끝났다. 또 다시 엄마 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와 같이 <구시대 구약역사, 신약역사>도 이미 하고 끝나고 죽은 격이라서 다시 못 한다.
56. <과거 역사>는 ‘과거’로 끝났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역사는 그때 끝났다. 우리가 그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그들이 갔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야 된다.
57. <그 시대 가나안 땅>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역사다.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58.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에게나 “이집트에서 나와라. 신광야로 가자.” 이 말이 필요하지, 이 시대에 필요하나? 지금 우리가 ‘광야 땅’에 가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될 입장이냐.
59.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블레셋을 쳐라!” 하는 말이 필요 있느냐. 3000년 전 죽은 골리앗이 지금 또 쳐들어오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다.
60. 소 잡고 양 잡고 제사 드리던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와 무슨 상관있느냐. 상관없다. (저 우상의 종교를 보아라.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구약 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절하며 예배 드린다. - 전자 역사)
61. 어른에게 해당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하나. 아무 필요 없다.
62. <이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에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 필요하다.
63.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사지어라.” 했다. 그 ‘손자’는 커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농사지으라고 했던 말이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다.
64. 경찰이 ‘차로’에서 호각을 불면, ‘인도로 가는 자들’에게 해당되느냐. 또 ‘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지키며 잘 가는 차들’에 해당되느냐. ‘차로에서 교통을 위반한 차’에만 해당된다.
65. <구시대 말씀>이 이 시대에 온 우리에게 해당되느냐. 구시대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다.
66. <구약, 신약, 성약>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시대’가 다르다. 하나님은 개성대로, 시대대로, 차원대로 역사하신다.
67. 한국이 일본의 속국일 때의 법이 이 시대에 해당되느냐. 그 나라를 벗어났으면, 그 나라의 법이 100% 필요 없는 것이다.
68.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구시대>를 벗어났으면 ‘구시대 법’이 필요 없다. <새 시대>에 왔으니 ‘새 시대 법’만 지키면 그만이다.

69. 인생길은 한 번 가면 그 길은 다시 갈 필요가 없다. <어제> 미리 배를 타고 강을 건너왔으면, <오늘>부터는 육지의 길로 가면 된다. 고로 <오늘>부터는 ‘차’가 필요하다.
70. 이와 같이 <새 시대>가 왔으니 더 이상 ‘구시대 법’과 ‘구시대 말’은 필요 없다.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 ‘새 말씀’이 필요하다.
71. 구시대인들을 보아라. ‘행사’도 구시대 식대로 하고, ‘말’도 구시대 말을 한다.
72. 이 시대를 보아라. 구시대의 영도자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시대 어린아이와 같은 영도자’라도 쓰고 나타나 ‘구시대’에 맞게 역사하시며, 위로하신다.
73. <신약시대>가 오니 ‘구약의 법’을 폐했듯이, 누구든지 <새 시대>에 와서 살면 ‘구시대 법’은 옛집 혈어 버리듯 해야 된다.
74. 예수님 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왜 율법을 안 지키냐?” 하고 무식한 말을 했다. 이는 마치 다 큰 사람을 보고 “왜 지저귀를 안 차냐?” 하는 격이다.
75. 이 시대도 ‘새 시대에 와서 사는 자들’에게는 <옛 법>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이 시대 법’을 지키며, <이 시대 휴거의 뜻>을 이뤄야 된다.
76. 개인도 10대를 벗어나면 10대 때 하던 행위를 싹 버리고, 20대에 할 일을 해야 된다. 20대를 벗어나면 20대 때 하던 행위를 싹 버리고, 30대에 할 일을 해야 된다. 개인을 확대하면 <역사>다.
77. 농부일 때는 호미와 낫과 쟁이와 농기구를 생명시하고, 농부가 사업을 하여 사장이 됐으면 옛 농기구들을 싹 버리는 것이다.
78. <육신>은 ‘새 시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구시대’에서 사니, 곤고하고 답답하게 사는 것이다. 고로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 각종 인생의 병들을 안고 살아간다. 모두 새 시대를 찾지 못한 연고다.
79. 제때 할 일을 못 하면 병나고, 우울증이 생기고, 답답해서 미친다.
80. <구시대 기성>은 ‘젊은이들’을 신앙의 혈통으로 품었다. 그러나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격이다. <새 시대>에 태어났는데 <구시대>에서 살아가니, 답답해서 못 산다. 고로 아모스 8장 말씀처럼 젊은이들이 힘이 없어 비틀거린다.
81.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구시대’를 가르치며 같이 살자고 한다. 그러니 안 맞아서 같이 못 산다.
82. 만물같이 ‘때’를 좇아서 살아라. ‘시대’를 좇아서 살아라.
83. <구시대 법>은 어렸을 때 따르는 법이다. 다 컸으니 모두 버리고 <새 시대>를 좇아라.
84. 어렸을 때는 소년 소녀가 소꿉장난을 하면서 ‘결혼 놀이’를 한다. 이제 성장도 했고 새 시대도 왔으니 ‘진짜 결혼’을 하고 살아라.
85. 성장된 자가 어린아이같이 놀면, 누가 봐도 저능아로 본다.
86. 크면 기저귀를 벗고 ‘옷’을 입듯이, ‘새 시대의 옷’을 입어라.

87. <성약시대>는 ‘완성기’다. 이때 신부로 변화된 자들은 구약 신약 - 성약의 종교 역사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다. 고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최고 세계인 <황금성>을 준다.

88. 저 기성을 보아라. 구름 타고 오신다던 분이 안 오니, 교계의 지도자나 희망으로 맞고 기뻐한다. 안타깝다.

<2014년 10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어도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행했다면 ‘죄’가 된다.

2. <하나님의 주권권>을 벗어나 사는 삶 자체가 ‘죄’다.

3.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4. 같은 행위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죄’가 안 되는 것도 있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 ‘죄’가 아니다.

6. ‘죄의 종류’는 수만 가지다. 몇 달을 두고 말해도 못다 한다.

7. 각 나라마다 법이 있다. 법전은 몇 달을 두고 봐도 다 알기 힘들다.

8. <하나님의 법>은 수억만 개다. 지구 세상에는 7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당 한 가지씩만 쳐도 법이 70억 가지다.

9. 개성마다 다 법이 있다. ‘개성의 법’이다.

10. 하나님이 인간을 개성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였는데, 개성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11.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죄를 짓는다.

12. <법>은 ‘시대’마다 다르다.

13. <구약 법>은 ‘옛날 법’이다. <구약> 때 ‘하나님을 대하는 법’이 달랐다. 고로 <신약>이 왔을 때는 ‘구약 법’을 폐하고, ‘신약시대에 합당한 법’을 주셨다. <폐한 구약 법>은 안 지켜도 ‘죄’가 아니다. 그 대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신약 법>을 지켜야 했다.

14. <성약>이 왔으니, 하나님은 또 ‘신약 법’을 폐지하셨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성약 법’을 주셨다. <성약 법>을 지키면, <신약 법>은 안 지켜도 ‘죄’가 아니다. 그 대신 ‘시대 구원자’를 믿고 <성약 법>을 지켜야 된다. 이는 새 옷을 입으면 옛 옷을 안 입어도 법에 안 걸리는 격이다.

15. ‘더 좋은 구원과 휴거’를 위해서는 <더 힘든 법>을 지켜야 된다.

16. <구약>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신약 아들 법>으로 볼 때는 ‘죄’인 것도 있었다. 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니, 지킬 것을 더 지켜야 했다.

17. <신약>에서는 죄가 아니었어도 <성약>에서는 ‘애인 법’을 적용하기에 죄가 되는 것이 많다. ‘신부’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18. ‘종’은 <종의 법>만 지키면 되고, ‘자녀’는 종보다 차원이 높은 <자녀 법>을 지켜야 되고, ‘신부’는 자녀보다 차원이 높은 <신부 법>을 지켜야 된다.

19. <신부 법> 안에는 ‘이성 법’이 들어 있다. 이 법을 지켜야 사랑하는 신부로서 사랑받게 된다.

20. 저마다 누구나 ‘남남’일 때는 그에 해당되는 법만 지키면 된다. ‘남남’일 때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도 자기에게 ‘죄’가 아니다. 그러나 ‘자기와 사랑하는 애인 사이’가 됐을 때부터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면 ‘죄’가 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죄의 정의’가 달라진다.

<2014년 10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22. 온 인류의 모두에게 동일한 죄가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23. 하나님이 <신약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으나 율법 속에 있던 구시대인들은 새 역사로 오지 않았기에 모두 ‘죄’가 되었다.

24. 하나님이 <성약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으나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불신한 자들은 모두 ‘죄’를 짓게 되었다. 그 죄값은 <시대 구원과 휴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25. <천륜의 법>은 인간이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아무리 대항해도 막을 수 없다.

26. 섭리역사에서 사명자와 잠시 연락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 성자를 위한다고 하며 행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했으면, 모두 회개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나가기도 했다.

27. 주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불법’이다. 기도하여 제대로 행했다면, 불의를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28. 몰라서 ‘불의’를 행하고, 무지해서 ‘불의’를 행하고, 자기가 온전하지 않아서 ‘불의’를 행한다.

29. 인간은 ‘무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육도 영도 무지하게 살다가 무지한 세계로 가서 끝나고 만다.

30. 성자는 후회하지 않으시고, 후회할 것도 없으시다.

31. 성자는 해 줄 것을 다 해 주셨다. 미련 없이 사랑도 해 주셨다. 고로 인생들이 지옥에 가더라도 성자는 못 해 준 것이 없으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인간이 성자를 대한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해 주셨다. 그래도 불신하고 떠나고, 자기 책임을 안 하다가 떠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사망으로 갔으니, 성자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32. 만일 성자가 못 해 줘서 인간이 사망으로 갔다면, 후회와 미련이 남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자기 책임을 못 해서 구원도 휴거도 상실하니, 성자는 후회도 미련도 없으시다.

33. 자기만 책임을 하면 충분히 <구원>도 받고 <휴거>도 이룬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해 줄 것은 다 해 주었다. ‘말씀’을 주면 다 해 준 것이다. ‘조건’도 세워 주었다. 이제 ‘자기가 할 일’만 남아 있다.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34. 자기 형제가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형제끼리는 ‘자기 일’이 아니니 그냥 놔둔다. 그러나 <자기 애인>이 ‘연애’를 하거나 따로 또 ‘결혼’을 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35. 다윗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 일반 백성에게는 ‘죄’가 되었다. <왕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다.

36. <예정된 자>는 ‘관리자’가 힘들어서 손을 놔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관리하고 역사하여 다시 찾아오시어 뜻을 이루신다.

<2014년 10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을 비워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2. <자기 시간>을 비워라. 그래야 성자께서 그 시간을 쓰면서 할 말을 한다.
3.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 인식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4. <자기 행위>를 비워라. 자기 행위를 비우는 것이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5. <자기 마음과 행위>를 비우면, 성자께서 그 비어 있는 마음에 들어가서 그 몸을 가지고 행하신다.
6. <자기 마음과 행위>를 비우는 것은 <차>를 비우는 것과 같다. 차를 비우는 것이란, 자기 차에 네 명이 타고 있다면 네 명 다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과 행위>를 다 비워라.
7.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계시를 받아야 그것을 <성자 계시>라고 한다.
8.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버리고 들어라.
9. <자기 구상>을 비워야 <하나님의 구상>을 준다.
10. <하나님의 구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상>이 <자기 구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11. 하나님은 때가 되면 ‘숨긴 것’을 밝히신다.
12. <구약시대>에 숨긴 것은 <신약 때> 나타내시고, <신약시대>에 숨긴 것은 <성약 때> 꼭 나타내신다.
13. 그 시대 역사가 끝났을 때 ‘숨긴 것들’을 나타내신다. ‘새 시대 섭리역사의 것’도 때가 돼야 ‘숨기신 것들’을 밝히신다.
14. <섭리역사의 초창기>와 <섭리역사의 과거>는 ‘섭리역사의 구시대’와 같다. 고로 하나님은 <과거에 섭리사에서 행한 일들>을 ‘섭리역사의 새로운 차원의 때’가 되면 나타내신다.
15. 처음에 <야심작 돌 조경>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구상이 ‘돌 조경 구상’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자연성전 건축기간>이 끝나고, <성약시대 초창기인 성약의 구시대>가 지나가고, <성약시대의 새 시대 격인 휴거 때>가 되니, <휴거시대의 끝자락>에 비밀을 드러내며 말씀하셨다.
16. 산의 형상, 지역의 형상, 바위의 형상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17. <월명동의 지형>은 ‘보좌 형상’이다. 타고났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18. 하나님은 <보좌 형상으로 타고난 월명동>을 따라서 <월명동 자연성전>도 같은 구상을 주어 ‘보좌 형상의 야심작’을 만들게 하셨다.

19.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역지로 만들지 못하고, 역지로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다.
20.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을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인간은 알 수 없다.
21. <천국의 하나님의 야심작>은 ‘하나님의 백보좌’다. 이 보좌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이며 ‘천국의 야심작’이다.
22.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했다. <천국>에 ‘하나님의 백보좌’가 있듯이,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곳>에도 ‘하나님의 백보좌’가 상징적으로 있다. <월명동 보좌>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구상을 따라 만든 <야심작 보좌>다.
23. 하나님은 ‘보좌 형상’으로 타고난 <월명동 산들>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 상징적으로 <보좌 형상의 야심작>을 만들게 하셨다.
24. <천국의 야심작>은 ‘하나님의 백보좌’이며, <땅의 야심작>은 <월명동의 야심작>으로서 ‘백보좌’를 상징하여 만들게 하셨다.
25. <월명동 자연성전>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땅의 야심작’이다.
26. 지금은 새 역사에서도 첨단으로 차원을 높인 <휴거 시대>로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루는 시대’다.
27. 하나님은 이미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대로 <월명동>을 구상하고 만들게 하셨다.
28. <휴거>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상징의 수 14만 4천 무리’를 모으는 역사를 이룬다.
29.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14만 4천 무리를 모으는 역사>는 ‘땅에서 만든 하늘 보좌,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곳’에서 이룬다.
30. 요한계시록 14장 말씀도, 성경 전체 말씀도 ‘인간 스스로’는 못 이룬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이 시대의 뜻’을 함께한 자들이 <휴거>로 이룬다.
31. <월명동>은 ‘천하의 요새’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기서 ‘시대 보낸 자’도 낳고, 가르치고, 키웠다. 또한 그 자리를 ‘성전’으로 삼았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의자 조경’을 만들었다. 신랑 되신 성자를 맞고, 하나님의 6000년의 한을 풀고 ‘창조 목적의 뜻’인 <휴거>를 이루려고 만드신 것이다.
32. <월명동>과 <야심작>은 세상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구상이다. 금으로 뒤덮인 신전과도 비교가 안 되는 <대(大) 자연성전>이다. 하나님이 섭리사를 지휘하시고 이끄신 증표다. 이 시대에 성자를 맞은 증표다. 섭리역사의 자부심이며 증거물이다. 아멘!
33. <월명동>은 ‘귀하고 뜻이 깊은 땅’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작한 역사의 ‘시작과 끝의 땅’, 곧 ‘알파와 오메가의 땅’이다. ‘지구의 구원 역사를 끝맺는 땅’이다.

<2014년 10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일어나야 될 시간>에 일어나야 ‘좋은 꿈’을 주신다.
2. 잠을 깨워 줬는데도 또 자면, 계속 ‘나쁜 꿈’만 꾀진다.
3. 성자는 항상 ‘일어나야 할 제시간 전’에 좋은 꿈을 주시니, <제시간>에 일어나야 ‘좋은 꿈’이 꾀진다.

4. 어떤 꿈이 꺾이지는지 보아라. <제시간>에 잠을 깨고도 계속 누워 있는데 ‘좋은 꿈’을 주신 일은 없다.
5. ‘자기가 행했던 행위의 실상’이 <밤>에 ‘혼’을 통해서 ‘꿈’으로 나타나고, <낮>에는 ‘육’으로 나타내 보여 주신다.
6. 사람의 <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만 해도 생각하는 대로 흥분되어서 그렇게도 ‘몸’으로 하고 싶어진다.
7. ‘한 번 생각한 것’은 그렇게도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 마치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못 참고 먹듯이, 다른 것들도 그러하다.
8. 자기를 다스리려면 ‘육적으로 흐르는 생각’을 금하고 주관해야 된다. ‘생각’을 그냥 놔두고 ‘몸’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못 참는다. ‘생각’을 다스려야 ‘몸’도 다스린다.
9. <몸>은 <생각>을 따라간다.
10. 자동차나 자동기계를 보아라. ‘엔진’에 의해서 움직인다. 사람도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 마치 뼈에 살이 붙어 있어서 뼈가 가면 살이 가게 되듯이, ‘생각’이 가면 ‘몸’도 따라간다.
11. <생각>을 주관해라.
12. ‘생각’하고 마는 것도 있지만, 먹고 싶은 음식을 생각하면 거의 먹듯이 ‘생각’하면 하고 싶은 것이다. 고로 불의한 것들은 아예 ‘생각’을 잘라 버려라.
13.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은 ‘자기’가 다스리기다.
14. 뇌가 어릴수록 ‘생각’을 못 다스린다.
15. 뇌가 발달됐어도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생각을 잘 못 다스린다. 그러나 ‘생각’이 강하니 자기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는 만큼 더 잘 다스릴 수 있다.
16. 사람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나, 먹는 것이나, 얻는 것이나, 사랑이나, 원하는 것을 향해서는 ‘생각’이 쉽게 움직이고 ‘몸’도 쉽게 행해진다. 고로 그것들 앞에서는 자기를 다스리기 힘들다.
17. 힘든 일은 힘드니까 ‘생각’이 거부한다. 고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서 하기 힘들다.
18. 앞날에 얻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빨리 얻지도 못하고 과정 가운데 고통스러우니, 힘든 일 앞에서는 ‘생각’이 약해져서 하고자 하지 않는다.
19. 당장 거둘 것과 순간 먹고 입듯 하는 것은 빨리 얻으니, 이런 일 앞에서는 ‘생각’이 칼날같이 움직여지고 금방 행하게 된다.
20. 사람은 자극적인 것 앞에서는 ‘생각’이 빠르게 움직이며 순간순간 행하려 한다.
21. <몸>은 편한 것이 천국이니, 편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된다. 인간의 <육신>과 <생각>은 ‘편한 데’로 흘러간다. 고로 성령을 받아라. ‘성자의 마음, 주의 정신’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고 ‘성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완벽히 전환한 후에 생각해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전능자의 생각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함으로 육도 영도 ‘하늘에 속한 신의 삶’을 살게 된다.
22. <돌>을 조각하여 만들면 ‘돌 취급’을 안 하고 ‘작품 취급’을 하듯이, <사람>도 만들고 변화시켜 놓으면 ‘과거에 처

한 자 취급’을 안 하고 ‘인생 작품 대우’를 해 준다.

23. <쫓덩이>로 차를 만들든지 전자 제품을 만들면, 그때부터는 절대 ‘쫓덩이 취급’을 안 하고, ‘귀한 것’이 되어 귀히 쓰임 받는다. 이와 같이 <사람>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만들면, 만드는 대로 ‘황금성에 속한 자’가 되어 ‘천하의 귀한 자 대우’를 받게 된다.

24. 자기를 최고로 귀하게 만들어라!

25. 이 시대는 지구를 만든 역사상 둘도 없는 최고의 때, <휴거 때>다. ‘휴거의 말씀’이 최고로 높고 깊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휴거의 육’으로, ‘휴거의 영’으로 만들기다. <육>은 땅에서 휴거되게 하고, <영>은 천국으로 휴거되게 하자!

26. <휴거의 육>과 <휴거의 영>이 ‘최고로 귀한 형상’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휴거된 육과 영’을 ‘최고의 가치 있는 작품’으로 보신다.

27. 세상에는 ‘많은 작품들’이 있다. 그 작품들은 대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다. 고로 영원하지 못하다.

28. 너를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값이 영원하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작품은 ‘휴거된 영’이다.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지구상에서 최고로 귀하게 만든 자’가 누구이겠느냐.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가 ‘삼위일체의 최고의 생명의 작품’이다. 세상 어떤 만물 중에서도, 세상 어떤 사람 중에서도 ‘구원자’에 비할 자가 없다.

30. ‘지구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 큰 자’는 <구원자>다. 첫째, 누가 만들었느냐가 문제다.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작가가 되어 만들었기에 그리도 귀하다. 그리고 본인도 만들었다. 세상에 나와서 사명을 해야 될 기간이 있으니 오래 못 만들지만, 수십 년을 만들었다. 그런 후에 세상에 나와서 구원의 사명자로 쓰이면서 수십 년 동안 핵심적으로 쓰이고, 육의 생이 다할 때까지 쓰인다. 둘째,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다. <구원자>는 인생들을 ‘삼위의 신부’로 ‘휴거의 육과 영’으로 만드는 데 쓰여지니, 천하의 최고로 귀한 자이며 큰 자다.

31. <월명동>은 최고의 작품이다. 첫째, 누가 만들었느냐가 문제다.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육으로 쓰는 분체를 통해서 만든 작품이니, 그리도 귀하다. 지구 세상에서 최고의 구상으로 만든 작품이다. 둘째,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문제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인 ‘인생들을 휴거시키는 장소’로 쓰이니, 최고의 작품이다. / 다른 곳들은 아무리 명소여도 ‘하나의 관광지’로 쓰인다.

32. 세계 각 나라마다 다 ‘귀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육에 속한 것들’로서 ‘육에 속한 차원의 작품’이다. 영을 영원히 존재시키는 데 쓰이지 못한다. 고로 ‘육적 가치’는 있지만 ‘영적 가치’는 없다.

33. ‘영을 영원히 소생시키는 데 쓰이는 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34. 중국의 <만리장성>은 ‘전쟁을 할 때 방패로 쓰였던 성벽’이다. 만 리가 동일한 같은 모양과 형태다. 30m를 가나, 100m를 가나, 1000m를 가나, 10000m를 가나 똑같은 구상이며 똑같은 모양이다. 작은 흙벽돌을 구워서 쌓은 것으로 ‘성벽 작품’이다.

35. 각 나라의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들 중에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들’이 많다. 그 작품들은 왕이 자기를 알아봐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생각이 뇌에 꽂 찬 상태에서 만들었다. 이 작품들은 대개 ‘자

기 지능과 재능이 중심이 되어 만든 작품들'이다. 어떤 것은 '인간의 솜씨와 재능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상을 주어 만든 작품'도 있다.

36. 중국에서는 '옥'으로 각종 조각을 많이 한다. 그 조각품들은 작가가 개성대로 만든 '개인 야심작'이다. '작가의 작품'이다.

37. 세상에는 '귀한 작품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거의 <인간 구상>이다. <작가 구상>이다.

38.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구상하시어 건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쓰게 하셨다. 그러다가 함락되어, 지금은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 구상하고 건축한 <회교 전당>이 세워져 있다.

39.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짓도록 지혜를 주셨다. 세계 각 나라마다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모두 하나님의 감동과 구상으로 건축하게 하셨다.

40. <월명동>은 성약시대에 하나님이 구상하신 '세계에 둘도 없는 자연성전'이다. 동에서 서까지 사방 몇 시간씩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그 육인 분체'를 통해서 일일이 지시하며 만드셨다. 그 '가치'와 '아름다움'과 '뜻'과 '사연'이 무한하다. '자연'을 <성전>으로 만들었는데,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이며 모형이라는 성경말씀대로 월명동의 형상은 '하나님의 백보좌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보좌의 그림자'다. 그 안에 세워진 <야심작 돌 조경>도 '보좌 형상'으로 만들게 하셨다. 사방 1시간 거리가 의자 형상이다.

41. 천국과 지상을 통틀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보좌'다. 그곳에 거실과 방들이 다 딸려 있다. <백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이 연결되어 있다. 가장 가까이 <황금성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차원의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는 <그다음 차원의 천국>으로 점점 거리를 두면서 존재하고 있다.

42. 새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보낸 자, 구원자'다. / 그다음으로 최고의 작품은 '그가 가르쳐서 구원받고, 300선으로 휴거된 자들'이다. / 그다음으로 최고의 작품은 '보낸 자와 그들을 통해서 만든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43. 자기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빛나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천층만층으로 만든 건물 작품보다, 이 세상 어떤 작품보다 하나님은 '휴거된 자'를 더 크게 보신다.

44. <휴거된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귀한 작품'이며 '영원한 영광의 작품'이다.

45. <신약역사>는 '구약이 바라던 이상세계'로서 '역사적 휴거'다.

46. <성약역사>는 '신약이 바라던 이상세계'로서 '역사적 휴거'도 이루고, 개인마다 '자기 육과 영의 휴거'도 이룬다. 마치 개인마다 땅을 줘서 그곳에 자기 개성대로 집을 짓는 격이다. '자기 육의 행위와 수고'로 '자기 영이 거할 곳'을 삼위의 구상으로 삼위와 일체 되어 아름답고 신비하게 짓는 것이다.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47. 하나님은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만든 것'을 최고로 크고 귀하게 보신다.

48. 천국의 야심작은 <하나님의 백보좌>다. 이 시대 새 역사 최고의 야심작은 <성삼위가 보낸 구원자>다. 그다음 최고의 야심작은 <휴거된 육과 영>이다. 그다음 최고의 야심작은 '백보좌 형상'으로 타고난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자연성전 안의 최고의 야심작은 '보좌 형상'으로 구상되고 만들어진 <야심작 조경>이다. → 모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구상하고 만들었으며, 영원히 사랑하며 귀히 쓰이기 때문에 '최고의 작품'으로 보고 그리도 귀히 여기신다.

49. (성자) ‘사연 값’이다.

50. (성자) <사연>이 무엇이나. <사랑> 아니냐.

51. (성자) 사랑해서 창조했고, 사랑해서 택했고, 사랑해서 말씀을 주고, 사랑해서 지금까지 지켜 주고 도운 것이 아니냐.

52. (성자)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의 사연’이 있으면, 하늘까지 치솟는 가치가 있다.

53. (성자) 하물며 사람이랴. 누가 창조했고, 누가 택했고, 누가 사랑했고, 누가 말씀을 주어 누구의 말씀으로 너를 만들었으며, 누가 너를 지켜 주고 도와줬느냐. 하나님, 성령님, 나 성자가 아니냐. 고로 ‘그 사연 값’이 크고도 크다.

54. 가령 <시장에 나온 작품들>이 있는데 성자에게 기도하여 골라 달라고 했을 때 성자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샀다면, 전능자의 손길이 가고 마음이 값으니 그만큼 사연이 있는 것이고, 그 사연과 함께 그 물건도 하늘에 속한 것이 된 것이다. 고로 자기가 골라서 산 것과는 가치가 다르다.

55. <땅속에 묻힌 것>도 기도해서 성자가 감동을 주어 땅을 파고 ‘작품 보물’을 찾았으면, 사연과 함께 그 가치가 하늘로 치솟게 된다.

56. ‘경주의 어떤 소나무’는 한 아름 되는 소나무인데, 그 값이 12억이었다. 철사로 수형을 잘 잡아 놓은 작품이라서 아무리 깎아도 12억을 달라고 했다. 그 소나무를 사다가 <하나님 성전>에 심어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기쁘게 해 주고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못 샀다. 그리고 기도하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키운 월명동 사연 솔을 내가 더 가치 있게 보고 더 기쁘게 본다. 너와 내가 키운 사연이 있으니, 어떤 작품과도 비교가 안 되게 귀히 본다.” 하셨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뜻이 있어 성자가 키우신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월명동 성전의 소나무들’을 더 귀히 관리하고 거름하며 키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라 이제 ‘아름드리 솔들’이 되었다. 그때부터 월명동 성전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땅들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니, 내 것같이 귀히 여기고 가꾸고 관리해 주었다. 이에 성자는 “지구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귀히 보고, 관리할 것은 관리해 주어라.” 하셨다.

57. 나무도, 돌도, 인생도 ‘하나님과의 사연 값’이다. 뜻이 있어 하나님이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키운 것이 가치가 크다.

58. ‘사연 값’은 ‘존재 값’이다. 누구의 사연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된다.

59. 월명동 성전에 있는 작품들과 구상미술관에 있는 작품들 모두 성자께서 섭리사에 주신 선물들이다. 성자와의 사연이 있으니, 참으로 귀하다.

60.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해서 이 역사로 불러오고, 말씀과 사랑을 주며 키워 오셨다. ‘신부’로 삼기 위해서다. ‘휴거’시키기 위해서다. 이것이 사연이다. 고로 귀하다.

61. 어떤 고물차가 있기에 그 값을 보니, 20억 원이었다. 60년이나 된 차였다. 왜 그리 비싼가 보니, 오래돼서 타지는 못하는데 세상에서 둘도 없는 작품으로 멋있게 꾸며 냈기 때문이다. 자기도 만들어라. 썩은 고물차도 만들면 귀히 쓰여진다. 자기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면, 사람들은 안 알아줘도 성자는 알아주시고 줄 것을 다 주신다.

62. 자기를 <최고의 작품, 인생 야심작>으로 만들어라. <월명동 야심작 돌 조경>은 ‘다섯 번’이나 무너졌고, 만드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많았고, 생명의 위험도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결국 쌓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백보좌 야심작>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기필코 쌓게 하셨다.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결국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 작품, 야심작, 휴거의 영>으로 만드시려고, 각종 어려움과 환난으로 무너졌어도 다시 일으켜 주셨다. <휴거의 야심작>으로 만드시려고, 힘들지만 그렇게도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행하게 하셨다. 자기 조건이 무너졌어도 다시 세워라. 마음이 안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기필코 <야심작>

돌 조경>을 세웠듯이, 자기 육과 영을 <휴거의 야심작>으로 만들어라!

63. ‘주의 강인한 정신’을 받아라.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정신을 받고 무너졌어도 다시 쌓아라.

64. 자기가 얼마나 하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65. ‘칼날 같은 주의 정신’을 받아서 불의한 것들을 베 버려라.

66. 결국 얼마나 ‘주의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각종 유혹과 어려움’을 다스리며 사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67.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성령’을 받고 ‘성자의 마음’을 받고 ‘주의 강인한 정신’으로 전환하고서 행해라.

<2014년 10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시대>가 발달되면, 운명과 상황이 뒤바뀐다.

2. <개인>도 발달되어 차원이 높아지면, 운명과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달라진다.

3. <월명동>은 산 지역이라서 논과 밭이 조금밖에 없어서 농사짓기도 힘들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밭을 움직이기만 하면 산이었다. 너무 비좁아서 살기에도 힘들었다. 월명동 밑에 있는 <석막리>는 평지 지역이라서 농사짓기에 좋았다. <석막리>는 <월명동>과는 비교가 안 되게 좋았다. 그러나 <월명동>을 개발해 놓으니, 발달되어 상황이 뒤바뀌었다. 이제 <월명동>은 평지인 <석막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귀한 땅이 되어 버렸다. 산 정상을 차지해서 ‘등산로’로 만들었고, 산은 ‘산책로’와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 주변을 싹 개발하여 ‘자연성전’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월명동>이 ‘하나의 도시’처럼 되었다. 이와 같이 <개인>도 시대가 바뀌어 발달되고 개발하면, 불리한 조건이었던 만큼 더 좋게 변화된다. 그러니 시대가 바뀐 만큼 자기를 만들어라.

4. 저마다 차원이 높아지도록 자기를 개발시키고 만들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상세계가 된다.

5. 무엇을 택하든지 항상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 분별하여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가지만 보지 말아라. 전체를 보고서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포기하고 ‘더 좋은 것’을 택해라.

6. 집을 비유로 들어 보자. ‘현재 자기가 사는 집’은 방은 넓은데 창문이 작다. 건너편 집은 방은 작은데 창문이 넓다. 이때 이사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행해라. 만일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가구들이나 짐들을 버리면 안 된다 하자. 그때는 창문은 넓어도 방이 좁으면 오히려 더 좁아서 답답하다. 그러니 그때는 이사를 가면 안 된다. 만일 가구나 짐들을 버리고 가도 된다면, 방은 조금 좁아져도 창문이 넓은 곳으로 이사 가면 좋다. 어느 상황에서나 <장점>과 <단점>은 같이 따라다닌다. 고로 ‘한 가지 좋은 것’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하고 행해라.

7.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하니, 본래 모습은 거의 다 없어지고 산만 남았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 100% 잘한 것이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방법대로 하면 <단점>이 없어지고, <단점>도 <장점>으로 바뀐다.

9. 처음에는 <단점>이었던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후에 가 보면 <단점>이 없어진다.

10. 사람도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 그러나 만들고 성장하면 <단점>이 없어진다.

11. 소나무도 어렸을 때에는 가지가 많고 볼품이 없다. 그래도 가지를 치지 말고 놔둬야 된다. 크면 큰 가지들이 되어서 바람에 너울거리며 멋있어진다.

12. 월명동을 개발할 때, 구상도 안 한 상태에서 개발했으면 <작품>을 버렸을 것이다. 막 손대지 않고 산들을 그대로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했다.

13. 사람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본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막 손대면, 오히려 ‘인생 작품’ 버린다.

14. 나무도 크면 <단점>이 없어진다. 월명동의 <사랑솔>을 보아라. 천연기념물이다. 멋있는 솔 작품이다. 가지를 그대로 놔두니, 나무가 크니까 가지가 기둥이 되어 멋있고 아름답다.

15. 사람도 그러하다. 어렸을 때 <단점>이 있다고, 강하게 손대면서 잘라 버리면 ‘인생 작품’ 버린다.

16. 나무가 어렸을 때는 가지가 땅에 닿아도 가만히 뒹서 크면 가지가 높이 있게 되니 안 걸린다. 신앙의 어린 자들도 그러하다. 자꾸 키우면, <단점>이 없어지고 <장점>만 남는다.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매일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살아간다.

2. 사람에게는 ‘영과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고로 <영적인 일>도 해야 되고 <육적인 일>도 해야 된다.

3. <육적인 일>을 먼저 하면 <육적인 일>은 성공하지만 <영적인 일>은 실패하게 된다.

4.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육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일>도 성공하고 <육적인 일>도 성공한다.

5. <육적인 일> 먼저 하면, 그 시간은 흘러간다. 고로 그때는 <영적 일>은 못 하게 되니, 결국 <영적인 일>은 실패한 것이다.

6. 사람이 <뇌>로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지만, ‘행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밖에 못 한다. 그 시간에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나밖에 못 한다.

7.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매일 ‘영적인 시간’과 함께 ‘영적인 일’을 먼저 준다. 고로 그 시간에 먼저 <영적인 일>을 해라. 그다음에 ‘육적인 시간’과 함께 ‘육적인 일’을 주니, 그때 그 시간을 가지고 <육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면, 인생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8. <육적인 일> 먼저 하고 ‘영적인 성공’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9. 같은 <신앙의 일> 안에서도 ‘먼저 해야 할 영적인 일’이 있다.

10. <기도하는 것>과 <말씀 듣는 것>은 같은 신앙의 일인데, ‘먼저 해야 할 영적인 일’은 바로 <기도>다.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될 육적인 일’이 <말씀 듣는 것>이다. 기도 먼저 하고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들려서 승리한다.

11.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일>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육적인 시간>을 주어 <육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 급하다고 <영적인 시간>을 ‘육적’으로 쓰면, <육적 일>을 한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영적 일>을 해도 실패한 것이 된다.

12.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육적’으로 써서 <육적인 일>은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일을 100% 잘 했다고 하지 않으신다.

13. 하나님은 하루하루 매일 <영적인 시간>을 먼저 주시는데, 그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시간’이다. 이 시간은 기도하고 새벽말씀을 들으며 <영적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시간을 <육적>으로 쓰면, 누구든지 그 시간에는 <영적인 일>을 못 했으니, 실패한 자다.

14. 새벽 시간은 <영적인 시간>으로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성자를 만나는 시간이다. 이것 먼저 잘하면 ‘영적으로 성공한 자’이며 ‘승리자’다.

15. ‘새벽기도 시간’이 끝난 후에 ‘육에 속한 시간’과 함께 <육에 속한 일>을 해야 된다. 곧 먹는 일, 단장하는 일, 직장에 가거나 학교에 가는 일, 신앙의 직장으로 가서 행하는 일, 가사 일 등이다.

16. 순서 있게 <영적인 일> 먼저 하는 자가 ‘영적 승리’를 하여, 그다음에 <육적인 일>도 잘하여 <육적 승리>도 한다.

17.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다가 다른 데 한눈팔면 되겠느냐. 그 사이에 사랑하는 자가 기다리다가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하고 애가 타서 찾으러 가다가 사고 당한다.

18.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자를 만나는 것’이 먼저다.

19. <영적인 시간>은 꼭 영적으로 써야 승리한다.

20. 신앙의 일을 하더라도 먼저는 ‘가장 영적인 일, <기도>’를 하고서 행하여라. 그래야 승리한다.

21. <영적인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거나 육적인 일을 하면서 보내면, 그날은 ‘영적으로 실패한 날’이 되고, 육적인 일을 하더라도 ‘B급 성공, 은메달 급 성공’을 한다.

<2014년 11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22. 누구든지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자는 <영적인 일>도 성공할 뿐 아니라 <육적인 일>까지 성공하고 승리한다.

23. 휴거되려면,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일> 먼저 해라. 그렇지 않은 자는 ‘휴거 길, 휴거 삶’에서 정지되어 있다.

24.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자만 ‘영’이 정상적인 삶을 삶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화되어 매일 차원 높여 ‘휴거 길’을 간다.

25. <영적인 일>을 먼저 하지 않는데, 휴거되는 영은 없다.

26. <영적인 일> 먼저 하는 자가 ‘신령한 자’이며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자’다.

27. 그때그때 ‘<영적인 일>은 어떤 것인가?’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

28. <영적인 일의 핵심>은 ‘성자와 분체’다. 성자와 분체를 최우선으로 두고,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된 상태에서 먼저 <영적 시간>을 ‘영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육에 속한 시간>을 가지고 <육에 속한 일>을 하는 자가 ‘영적인 삶’을 사는 자다.

29. <영적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30. 사탄은 <영적 시간>을 <육적인 일>을 하면서 쓰도록 상황과 마음을 트는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

31.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하면 매일 사탄을 이기고 멸한다.
32. <구시대>는 '육적'이고, <새 시대 섭리사>는 '영적'이다. 고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33. 악평자들은 섭리역사를 대할 때 '육적'으로 따진다. '구시대 말씀'을 대며 '육적'으로 따진다. 결국 한계에 처해서 육도 영도 갈 길이 막혀 버린다.
34. 교회는 '생명 전도와 부흥'이 '성전 키우기'보다 먼저 해야 할 <영적인 일>이다.
35. '생명 부흥'이 된 교회는 <영적인 일>을 먼저 했기에 '영적 승리'도 하고, '육적인 성전'도 얻어 '육적 승리'도 했다.
36. '매시간 그때마다 먼저 할 일'이 <영적인 일>이다.
37. 기도 시간에도 <보다 영적인 일> 먼저 해야 된다. 곧 기도하다가 성자를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즉시 기도를 중단하고 '성자와 대화하며 기록'해야 된다. 그다음에 <육적인 일>, 곧 '자기가 구하고 말할 기도'를 하는 것이다.
38. 성자와 분체와 소통하고 의논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다. 자기가 먼저 생각하고 행한 후에 성자와 분체와 의논하면,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일>을 뺏기고 '육적'으로 한 것이다.
39.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영적인 자>로서 먼저다. 고로 '먼저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기.'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승리하게 된다. / 그다음에는 혼자 행해도 <육적인 일>을 승리하고 성공한다. 이미 <영적인 일>에 승리했으니 <육적인 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40. 지도자들은 꼭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기.'다. 곧 '기도하고, 주와 소통하고, 주와 함께 행하기.'다. 이것이 '성자가 재촉하시는 영적인 일'이다.
41. '은'이 먼저냐. '금'이 먼저냐. '금'이 더 가치 있고, 먼저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고, 먼저다.
42. <육적인 일>에 먼저 시간을 쓰는 자는 승리해도 '은메달'이다.
43.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영 휴거'에 도움이 되어 휴거된다.
44. <영적인 시간>에 <육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것은 기름을 채우지 않고 비행기를 먼저 띄우는 격이다. 고로 날아가다가 100% 추락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적인 일> 먼저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인 천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천지와 육의 세계인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4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영적인 시간>을 먼저 주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하신다. 창조 이후에 이 순서를 바꾼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도 이 순서를 안 바꾸신다.
46. <영적인 일>을 먼저 하는 이 법을 어기면, 세상 어느 누구라도 매일 실패하고 산다.
47. 하늘에서 볼 때 '신령한 자', 곧 '하늘의 전능하신 삼위일체 성자'가 재림하신다. 그다음에 '성자'께서 '그 시대에서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택하고 만들어서 '자신의 육'으로 삼고 그를 통해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시대 말씀>을 전한다.
48. <영적인 일> 먼저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역사하신다. <영적인 일>을 먼저 해야 '승리의 길'로 가기 때 문이다.

49. <육적인 일> 먼저 하면 성삼위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

50. <육적인 일> 먼저 하면 짜증나고, 다 한 후에도 찹찹하고 곤고하다.

51. 아무리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향락을 누려도 <육적인 것> 먼저 하면 허무하고 바람을 잡은 것 같다.

52. <육의 일>은 했어도 <영의 일>은 못 하여 ‘영’이 실패하니,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5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하늘 말귀’를 알아듣는 자를 크게 쓰신다.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2.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성령님이고, <말씀>이 성자다. 고로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받은 자가 되어,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살게 된다.

3. 인간으로서 신이 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에 주신 말씀, 곧 그 시대에 땅에서 행해야 될 말씀을 받아야 된다.

4. 구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 말씀으로 시대를 다스려 나가고, 사탄을 이기며, 생명들을 구원한다.

5.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말씀’을 절대 믿고 듣고 행함으로 ‘그 시대의 신’이 되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6. 시험을 이긴 자, 악평을 이긴 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가 ‘신’이 된 자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시대 진리를 받아 행했기에 이긴 것이며, 성자와 분체가 함께했기에 이긴 것이다.

7. 최고로 좋은 시간, 기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8.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 수 있으니, ‘말씀을 받는 시간’이 최고로 좋고 기쁘고 가치 있다.

9.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 하늘의 비밀, 하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니, ‘말씀을 받는 시간’이 최고로 좋고 기쁘고 가치 있다.

10. <말씀>을 받아야 ‘시대’를 알게 되니, ‘말씀을 받는 시간’은 참으로 가치 있다.

11.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알게 되고 ‘축복하시는 것’도 알게 되니,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다.

12.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깨달아라.

13.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기도하여 계시를 받을 때, 받은 계시를 전해 줄 때, 계시를 듣고 받아들일 때가 ‘신이 되는 때’다.

14. <말씀>을 귀히 들어라. 그래야 엉뚱한 생각, 잡생각을 안 한다.

15. <말씀>에 답이 있다. 귀히 듣지 않으면 ‘답’을 못 찾아,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16. 말씀을 듣고 행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17. 말씀을 듣고 행하면, 휴거되는 중에 있는 것이다.
18.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다.
19.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휴거 중지 상태다.
20. 정신 차리고 간절히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행해라. 그러면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휴거된다.
21. 말씀대로 행하면, 신같이 행해진다.
22. <시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신’이 되어라.
23. 말씀을 간절히 받고, 간절히 전하고, 간절히 들어야 ‘신’이 된다.
24. ‘신’이 되지 않으면 ‘육적인 자’가 되고 가인이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지도 않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 체도 되지 못하고, 구원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
25. ‘신’은 모든 것을 아신다. 고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같이 성자같이 ‘비밀된 것들’을 알게 된다.
26.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오는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는가? 아니면 ‘성자’가 다시 오시는가? 너는 ‘전능하신 성자’와 ‘그 육인 구원자’를 구분하고 사느냐. 확실히 알고 사느냐. → <시대 말씀>을 온전히 받은 자만 ‘신’이 되어 확실히 구분하고 알고, <재림>을 맞고 <휴거>되어 살아간다.
27. <시대 말씀>을 못 받은 구시대인들은 ‘신’이 되지 못하여 아직도 ‘예수님의 육신’을 기다리고 있다.
28. ‘예수님의 육신’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시 오겠느냐. 2000년이 지났어도 안 왔고, 앞으로 영원히 안 온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가 다시 오셔서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시며 <재림과 휴거 역사>를 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한 번 보아라. 확인해라. 결국 ‘신의 말씀’대로 된다.
29. 너는 가장 영적인 시간인 <이 새벽 시간>을 잡아 신과 대화하고 교통하며 말씀을 받아 ‘신’이 되어 네 마음과 행실을 다스리며 ‘정결한 신부’로서 하루를 살아라. 그와 같이 인생을 살아라.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때’를 지켜 행해라.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삶>이다.
2. 기도할 때는 기도해라.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 듣고 생각할 때는 생각해라. 행할 때는 행해라.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라. 사랑할 때는 사랑해라. 이것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이다.
3. 전능자와 구원자를 믿을 때가 됐을 때는 믿어라. 휴거 때가 되면 시대를 좇아 휴거되는 삶을 살아 휴거돼라.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4. 지금은 <휴거 때>다.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 육신의 행위를 통해 자기 혼과 영을 변화시켜 휴거되어라. 지금이 만들 때다. 만들 때, 아예 완벽하게 구상하고 완벽하게 행해라. 이것이 <최고의 삶>이다.

5. 창조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도 <최고로 귀한 때>가 있다. ‘만들 때’다.
6.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예 완벽하게 구상하시고, 그 구상에 따라 완벽하게 만드셨다. 고로 우주와 지구는 완벽하게 운행되어 이 땅에 인간들과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7.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예 완벽하게 구상하시고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
8. 절대신이 창조한 결과물은 곧 ‘천지 만물’과 ‘사람들’이다.
9. 깊이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10.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해야 ‘신’이 되어 보고 생각하게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행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구상할 때’부터 아예 100% 완벽하게 구상하고, 그 구상대로 행하신다. 이것이 <신이 완벽하게 행하시는 방법>이다.
12. 행하기 전에, 만들기 전에 ‘완전한 구상, 완전한 계획’을 세워라. 그래야 온전하고 완전하다.
13. 자기 구상은 완전하지 않다. 고로 성경을 풀 때도 완전하게 풀려면, ‘신의 방법, 신의 구상, 신의 계획’대로 풀어야 된다. 그 구상과 계획을 아는 자는 ‘시대 보낸 자’뿐이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신’이 되어 <휴거>를 이룬다.
14. 절대 사랑, 절대 진리다.
15. 삼위일체는 절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시대’를 알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
16. ‘신’은 완전하게 행한다. 행할 때, 만들 때 아예 완벽하게 구상하고 행하고 만들기 때문이다.
17. ‘너’도 어떤 일을 하든지 행할 때 완전하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행해라. 그러면 신이 되어 완전하게 행한다.
18. ‘신’이 되어 살아야 신과 통한다.
19. 만들 때 ‘그 모양과 형체’가 결정된다.
20. 글을 쓸 때 ‘내용’이 결정되듯, 난자와 정자가 결합될 때 ‘성별’이 결정되듯, 집을 만들 때 ‘형체’가 결정되듯, <자기 혼과 영>도 만들 때 ‘형체’가 결정된다.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따라 완벽한 구상을 받아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나라.
21. 만들 때,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이 결정된다.
22. 만들기 전에, 행하기 전에 ‘완벽한 구상’을 하고 만들고, 그 구상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하기’다. 이것이 <신이 되는 방법>이다.
23. <자기 생활>도, <생명을 키우는 것>도, <자기를 만드는 것>도, <만사의 모든 일>도 먼저는 완벽하게 구상하고, 그 구상대로 천천히 온전하게 행해라. 그러면 ‘신’이 되어 산다.
24. <시대 말씀>을 전할 때 강사들은 ‘완벽한 기도’로 ‘완벽한 구상’을 받고 완벽하게 가르쳐라. ‘신의 방법’대로 ‘신’이

되어서 해야 생명을 살린다.

25. 호랑이도 시원찮게 가르쳐 놓으면, 늑대와 이리의 이론에 끌려간다.

26.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구상'을 완벽하게 한 후에 완벽하게 말하고 완벽하게 행해라. 그래야 '신'이 되어 <그 말과 행실>로 생명을 구하고, 자기도 온전히 변화시켜 휴거되어 살아간다.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27. 100% 완벽하게 구상하고, 100% 완전하게 행해야 '신'이 된다.

28. 온전해야 '신'이 된다.

29. 잘 만들고 싶어도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제대로 못 만든다.

30. '자기 생각, 자기 차원'에 만족하며 만들지 말고, '신의 구상'대로 만들어라.

31. '신의 구상'은 '하늘까지 치솟는 구상'이다. 그 구상대로 만들어야 만들어 놓으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가치도 치솟는다.

32.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그 차원대로 행해라. 그래야 최고 이상적으로 만들어진다.

33.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이왕이면 자기를 최고로 멋있게 만들어라.

34.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 최고의 구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구상대로 사는 것이다.

35. 훌륭한 자녀, 훌륭한 사람은 낳고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만들 때 '구상'이 중요하다.

36. <자기 인생>도 만들 때 결정된다. 만들 때 제대로 만들기다. 오직 전능자의 구상대로 완전히 행하기다.

37. 생명들도 만들 때 결정된다. 고로 가르칠 때 전능자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기다.

38. 강사들 수준에 따라서 생명들을 만드니, 아무나 가르치지 말아라.

39. 만들 때 제대로 못 만든 자는 10년, 20년 가도 그 수준이다.

40. <휴거>도 말씀을 들을 때, 시킨 대로 행할 때 결정된다.

41. 휴거됐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차원이 아니다. 휴거돼도 <자기 공력과 차원>에 따라서 '영의 형체'도, '영의 아름다움'도, '영이 빛을 발하는 것'도 달라진다.

42. 무엇이든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43. 글 한 문장도, 시 한 편도 '작품'으로 쓰려면 수십 번, 수백 번씩 고치면서 써야 된다.

44. 굴속의 아름다운 종유석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억 년씩 걸린다.

45. 하루를 만드는 데도 24시간이 가야 만들어지듯,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들어가야 만들어진다.

46. 소나무도 30~50년, 100년이 돼야 크고 품위 있게 자라서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47. 자기를 만들 때도 순간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라면서 만들어진다.
48. <휴거>도 답안지 쓰듯, 순간 만들어져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모순된 성격을 하나하나 고치고,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서 만들어진다.
49. ‘정신과 사고’는 순간 돌이킬 수 있지만 ‘행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걸린다.
50. 시대 말씀을 들음으로 성자와 분체를 배우고 알고, 성장하고, 그의 생각과 일체 되어 그의 몸이 되어 살아가면서, ‘육의 행실’로 인해 ‘마음’도 ‘생각’도 ‘혼’도 ‘영’도 변화되어 <하늘의 형체>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51. 콩이 두부로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들어가야 두부가 만들어진다. 우유가 치즈로 만들어질 때까지도 ‘여러 단계’를 거치며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들어가야 된다. <휴거되는 것>도 그러하다. ‘육’이 행해도 ‘혼과 영’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그 형체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52. 자기를 귀히 만들어라. 자기를 귀히 만들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이 들어간다.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라. 이왕 만드는 것이니, 완벽한 구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라.
53. <육에 속한 것>만 만들면, 육이 쓰다가 육이 죽으면 끝난다. <영>은 만들지 못했으니, 흑암 고통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54. <육>도 <영>도 만들어서 ‘양단’으로 귀히 써라.
55. 만들 때는 ‘구상’이 중요하다. 귀히 멋있게 만들고 싶어도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히 못 만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 구상을 받아라. 구상을 받았어도 자기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귀히 만들어진다.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전능자 성자는 인간에게 <말씀>을 주어 ‘성자 차원’으로 만들게 하신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자의 차원’으로 자기를 만들겠느냐. 사람마다 차원이 다르니, 만드는 차원도 다르다.
2. 성자는 ‘그 사람의 생각의 차원, 혼과 영의 급수, 힘과 능력과 재능’을 보시고, 그 사람 선의 최고의 수준으로 인도 하신다.
3. 성자는 인간이 물으면 대답하시되, ‘그 사람의 그때 차원’에 맞추어 말씀해 주시고 대해 주신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의 차원’이 안 되면, 말해도 모르니 말씀하지 못하신다. 고로 구해야 된다.
4. <육계>도 <영계>도 ‘차원과 급수’대로 존재한다.
5. <급수>는 ‘질서’다. 큰 신발이 많아도 발 사이즈에 맞게 신어야 된다. <큰 구상, 차원 높은 생각>이 있어도 성자는 ‘각 사람의 차원’대로 대해 주신다.
6. 천국에 가도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영이 개성대로 각각 달리 누린다. 영원히 그러하다. 자기 차원에서 더 차원을 높일 뿐이다.
7. 똑같이 성자의 말씀을 들어도 각자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 듣고 행하여 ‘자기 개성과 재능’에 맞게 차원을 높이면서 살아간다.

8. 성자는 차원을 높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경쟁의 차원’이 아니다. 달리기경주를 하는 사람이 옆의 사람을 제치고 자기가 1등을 하는 차원의 변화가 아니다. 만일 자기가 옆의 사람을 제치고 높은 단계로 올라선다면, 자기로 인해 옆의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구원과 휴거>에는 ‘그런 경쟁’은 없다. 10명 다 차원을 높여도 한 명도 손해가 없다. ‘경쟁의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는 차원’이고 ‘휴거되는 차원’이다.

9. 비유컨대 어떤 임금이 있는데, 10명 살고 있는 마을에 와서 ‘10명의 기술자’를 모은다고 했다. 음식 잘하는 사람, 농사 잘 짓는 사람, 심부름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귀 잘 알아듣는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등 ‘10명의 기술자’를 뽑는다고 했다. 마을에 사는 사람이 10명인데 기술자도 10명을 뽑으니, 자기가 자기 개성대로 열심히 하면 모두 ‘개성의 기술자’로서 뽑히게 된다. 자기가 뽑힘으로 인해서 옆의 사람이 안 뽑히는 일이 없다. 개성대로 뽑기 때문이다. <구원과 휴거>도 그러하다. <구원과 휴거>는 경쟁하여 옆의 사람을 떨어뜨리는 올림픽경기가 아니다.

10. 섭리사 안에서도, 섭리사 교회 안에서도 옆의 사람이 잘해서 뽑혔다고, 자기가 못 뽑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구원과 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 자기가 안 해서 안 되는 것이지, 옆의 사람이 구원받고 휴거됐기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자기가 잘해서 뽑혔다고, 옆의 사람은 안 뽑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개성대로 각 사람을 뽑으신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라.

11.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개성이 있다. 그 면에서 자기가 하면 된다.

12. 교회에서도 각자 개성대로 사명을 주면 되는데, 모르니까 달리기경주에서 1, 2, 3등 뽑고 나머지는 안 뽑듯 하여 교회만 다니게 한다. 각자 자기가 개성대로 하여라. 자기가 전도하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가르쳐라. 그리고 자기가 성자에게 보고하고, 본체에게 보고해라. 그러나 사람들과 의논할 것은 꼭 먼저 의논한 후에 보고해야 된다.

13. ‘50가지의 각각 다른 동물’이 있는데, 자기는 ‘그중의 한 종류의 동물’이라고 하자. 하나님은 50가지의 동물을 다 뽑으신다. 호랑이, 치타, 코끼리, 사슴, 기린이 뽑혔어도 다른 종류의 동물을 또 뽑으신다. 고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서 성장하고 만들면 된다. 토끼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먹고 뛰고 놀면서 성장하면, 꼭 뽑아 가신다. 그런데 토끼는 이것을 모르고 기린이 뽑혀 가니, “난 끝났다. 기린이 먼저 뽑혔네.” 한다. 하나님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다. <휴거>도 그러하다. 개성대로 뽑으려고 기다리신다. 어서 행해라. 변화되어라.

14. 게을러서 행하지 않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행하는 주와 행하는 형제들이 잡고 가면 행해진다. 그러면 변화된다.

15. 먼저 ‘구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하여’ 만들기다.

16. 신이 되려면, 시작하기 전에 100% 구상하고 100% 행하기다.

17. 완벽하게 구상하기, 완벽하게 행하기다. 그러면 ‘신’이 되어서 구상하고 계획한 대로 성공한다.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선생의 정한 기도 시간은 새벽 1시, 오후 1시, 오후 7시다. 새벽에 제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니, 성자는 마음이 상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후에는 제시간에 기도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시간을 맞춰 저녁 7시에 기도했다.

2. 기도 중에 선생이 성자에게 말하기를 “성자께서 마음이 상하여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면, 성자는 속이 상해서 미치겠어요?” 했다. 그러니 성자는 “왜 속이 상해서 미치냐? 그냥 놔둬 버리지.” 하셨다.

3. 말해도 안 들으면, 성자는 고생하며 깨달도록 그냥 놔두신다. 이 말을 명심하고 깨달아라.

4. 하나님은 완전한 영이시니, ‘인간이 육의 행실로 만들고 변화시킨 온전한 영’하고만 같이 살 수 있다.

5. 하나님은 <육>을 안 보고 <영>을 보고 결정하신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이니 <육>만 보고 결정하며 살아간다.
6. <과일나무>가 아무리 커도 <열매>가 앵두만 하면 보잘것없다. <나무>는 ‘육’과 같고, <열매>는 ‘영’과 같다. 하나님은 <영>을 보고 결정하고 택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육>이니, 육만 보고 결정하고 택한다. 곧 ‘외모, 얼굴, 풍채, 학식, 겉모습’을 보고 택한다.
7. 영계에서 보면, ‘대추씨’같이 작고 풍채가 없는 영들이 많다. 그 <영>을 보면 택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그 <육>을 보면, 육은 ‘복숭아씨’같이 풍채가 좋고 겉모습이 좋으니, 택한다.
8. 영계에서 <혼과 영의 미(美)>를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자들이 많다. 어떤 혼과 영은 ‘대추씨’같이 파리하고 앙상하고 너무 보잘것없어서 말도 하기 싫다. ‘육계에서 육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은혜가 총만한 자들의 영’은 은혜의 살이 붙어서 살찐 송아지같이 반짝인다.
9. <육>은 잘 먹고 잘 관리하면 며칠이면 좋아진다. 그러나 <혼과 영>은 근본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형체로 만들려면, 금방은 안 된다. <육>이 마음을 딱 먹고 3~6개월씩 계획적으로 전적으로 행하면, <영>이 어느 정도 아름답게 변화된다.
10. <나무>는 1년생, 3년생, 7년생, 10년생, 20년생, 30년생이 엄격히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을 보면 차이를 잘 모르지만, <영>을 보면 얼마나 변화되어 만들어졌는지 엄격히 차이가 난다.
11. 혼계에서만 봐도 안다. ‘세상 문화’가 좋아서 거기에 미쳐서 사는 자의 <혼>을 보니, ‘대추씨’같이 보잘것없었다. 얼굴은 가늘고 길고, 키는 1m에 바짝 말라서 허벅지가 젓가락같이 얇았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은 세상 문화는 ‘어둠의 사람’으로 보였는데, ‘그 어둠의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날뛰고 있었다. 그래서 불러다가 근본을 가르쳐 주었다. “네 짝이 아니다.” 했다. 내가 가르쳐 주니 잘 알아들었다. 그것을 보고 새벽예배를 드리려고 영계에서 나왔다.
12. 어떤 자는 <육>은 미인인데, <영>은 형편도 없었다. 육계로 나와서 <육>을 보면, 그 <혼과 영>이 생각나서 그 기준대로 대하게 된다.
13. <육>이 아무리 멋있어도 <혼과 영>이 보잘것없으면, 그 기준대로만 대해 주게 된다. <혼과 영>이 멋있으면, 그 기준대로 귀히 대해 주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이시다. 고로 ‘우리의 영’을 데리고 사신다. 고로 삼위는 <육>은 안 보신다. <육>이 제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매일 늙어 간다. 안 늙으려고 관리하고 운동해도 ‘육의 형체’는 매일 바뀐다.
15. <혼>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보인다. 기도하여 <육>도 깊이 다시 보고, <혼>도 깊이 다시 봐라. ‘혼의 얼굴과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대해라.
16. <혼의 계급>도 보고, <혼이 치장한 것>도 보아라. <육의 계급>과 <육이 치장한 모습>으로는 ‘신앙의 급수’를 구분하지 못한다. <혼과 영>을 봐야 된다. <만들어진 혼과 영>은 ‘빛’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권세’도 다르다.
17. ‘행위가 더러운 자들의 <혼>이나 <영>’을 보면 거지나 불구자, 혹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 그리고 더럽고 어두운 주관권에서 다닌다. 회개하고 <육신의 행위>를 고치고 온전히 살아야 <혼과 영>도 고쳐진다. 하루 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 쉽지 않다. 마음 딱 먹고 계획적으로 고쳐야 된다.
18. 전능자의 <시대 말씀>으로 ‘육신의 행위’를 바로잡고 행해야 고쳐진다.

<2014년 11월 8일 토요일 새벽잠언>

19. 영계에서는 ‘영의 미’가 권세다. 벼슬이다. 영광이다.

20. 영계에서는 ‘영의 권세, 벼슬, 영광’대로 그 차원의 세계에서만 산다. 낮은 급수의 영이 높은 급수의 영계로 영원히 못 간다.
21. ‘육계의 미인들’은 매일 늙고 변해 간다. 그 시간이 일순간이다. 그러나 ‘영의 미’는 영원히 가지고 있다.
22. 10년 전에 예쁘다고 했던 사람도 10년 후에 다시 보니, ‘육의 형체’가 변해서 지상에서는 평생 10년 전의 얼굴을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 <영>을 보니, 육보다 더 예쁘고 아름다웠다. <육>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외치고, 성자와 주를 사랑하면서 사니 <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었다.
23. 새벽에는 열심히 기도해라. 성자를 만나라. 그리고 낮에는 뛰어라! 그러면 ‘육의 얼굴’도 좋아지고, ‘혼과 영의 얼굴’도 좋아진다.
24. 사람의 <육>이 아름다워도 얼굴에 빛이 나야 달리 보인다. 아무리 <육>이 아름다워도 ‘영적인 자’가 아니면 얼굴에 빛이 안 난다. ‘얼굴이 예쁘고 멋있는 것’과 ‘얼굴이 빛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예쁘고 멋있다고 해서 다 빛나는 것이 아니다. <육>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빛나는 자>를 못 따라간다.
25. 영계에서는 ‘의로운 영의 사명’으로 <영 급이 높은 혼과 영>이 빛난다. 이런 영들은 다른 영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 ‘자기 육의 행위로 인한 빛’이다.
26. 밤에는 ‘빛나는 불빛’만 보이지 ‘어두운 곳’은 안 보인다. <혼과 영>도 빛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다. <어두운 혼과 영>은 거의 ‘죄인들’이다. ‘악에 속한 자들’이다.
27. 자기 혼을 보고 고칠 것을 고치라고 매일 기도해 주니, 자기 혼을 보고서 예사로 여기지 말아라. <혼과 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면, 그 상태로 영원히 머물러 그 상태의 영계로 간다.
28. 빛나지 않는데, <황금성>에 가는 ‘혼과 영’은 한 명도 없다. ‘빛나지 않는 혼과 영’은 거의 낮은 단계의 영계로 간다.
29. ‘섭리를 불신하고 나간 자들의 영’을 영계에서 봤는데, 빛을 피해서 어두운 곳으로 다녔다. 어떤 영은 얼굴도 몸도 어두웠고, 어떤 영은 인간의 형체를 벗어나 짐승의 형체로 변한 채 살고 있었다.
30. 매일 <자기 혼>을 보고서, 육이 행함으로 고쳐라.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기다.
31. <육계>도 더 좋게 변화시키고 만들기다. <영계>도 더 좋게 변화시키고 만들기다.
32. <몸>이 지옥이다. <마음>이 지옥이다. <환경>이 지옥이다.
33. 수렁, 가시덤불, 어두운 곳, 극적인 고통의 세계 등 <환경>을 보아라. <환경>이 지옥 같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주셨다. 요셉도 은밀하게 환경을 옮겨 주셨다.
34. 모두 ‘사는 환경’을 보아라. ‘육과 영’을 보아라.
35. <역사>는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 ‘환경’을 옮겨 왔다.
36. <구시대 차원의 환경>은 아무리 교회를 궁으로 지어 놓고 살아도 ‘구시대 환경’이다. 영계에서 보면, 구시대인들은 ‘신광야 급’에서 산다. 구시대는 무조건 ‘신광야 생활’이다.
37. <새 시대 섭리사>는 무조건 ‘가나안 땅 같은 세계’다. 섭리사의 환경을 보아라. 육계도 보고 영계도 보아라. 그래

야 확실히 안다.

38. '육계 역사'에 따라서 '영계의 운명'이 좌우된다.

39. 이 땅에서 '신부 역사'를 펴면, 영계에서도 '신부'다.

40. <구약 환경 - 신약 환경 - 성약 환경>은 각각'하-중-상 차원의 환경'이다.

41. 사람들은 잘살수록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발버둥 친다.

42. <천국>도 '환경'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다. 제일 좋은 환경은 <하나님의 백보좌>로서, 이곳이 천국의 핵심지다. 그 다음 좋은 환경은 삼위를 사랑하여 신부로서 휴거된 자들이 사는 <황금성>이다. 밑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차원이 낮아지면서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43. 신구약 6000년 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시대가 발달된 대로 ① '그 급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섭리하셨다. ② 그리고 '그 급의 말씀'을 주시며 섭리하셨다. ③ 또한 '환경'도 그 차원 급으로 주시며 역사하셨다.

44. 하나님은 늘 '창조한 만물'을 가지고 '환경의 축복'을 주신다.

45.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이나 섬기고, '물질과 명예와 세상'만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육의 환경>이 '금 반석' 같아도 <마음의 환경, 혼의 환경, 영의 환경>은 '지옥 주관권'이다. 하나님이 각각 구분하여 환경을 창조해 놓으시고, 각각 행위대로 그 환경에서 살게 하시니 꿈쩍도 못 한다. <육>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고, 육이 죽은 후에도 <영>이 영원히 받는다.

46. 육 환경, 마음 환경, 혼 환경, 영 환경이 다 좋아야 <천국>이다.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뇌신경 세포>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된다.

2. 눈으로 보여 주고 생각하게 만들면, <뇌신경>은 그대로 반응하여 작동한다.

3. 눈으로 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몸으로 만지지 않으면, <뇌신경>은 '자체 기능'만 한다.

4. 자기가 어떤 것을 보고 좋아하면, <뇌신경 세포>도 동조하여 같이 좋아하며 움직인다.

5. <뇌>는 '길'을 잘 들여야 자기를 다스리기 쉬워진다.

6. <뇌>를 <생각>과 함께 어떤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 전에는 그것에 빠져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다.

7. <뇌>는 최고로 예리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느끼는 '하나의 신경덩이'다.

8. <마음>은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원인은 <뇌신경>이 그렇게 길들여져서 굳어 있기 때문이다.

9. 과거를 살아오면서 <뇌신경>이 그렇게 길들여지고 체질이 되어 있고 면역이 되어 있으니, 자기가 마음먹고 생각하며 행하려 해도 <뇌신경>이 따라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10. <자기 뇌신경의 체질>을 다시 온전히 고치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원하면 <뇌신경>도 바로 반응을 보이고 움직인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뇌>에 ‘하고픈 말’을 전달하신다. 감동을 주시거나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느껴 알게 하신다.
12. <뇌>는 녹음기와 같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시면 뇌에 그 말씀이 녹음되어 느껴지는데, 그 말씀이 자기 뇌에서 생각나면서 자기에게 전해진다.
13. <뇌>는 ‘자기 생각’으로 지시하고, 다스리고, 부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뇌>를 부리는 자가 성공한다.
14. <뇌>는 자기가 ‘말’로 명령하고 지시하면, ‘생각’에 의해 작동된다.
15. 자기가 ‘말’로 명령하고 지시해도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뇌>가 무감각하게 굳었기 때문이다.
16. 성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이 커야 큰일을 한다.” 그래서 성자에게 말했다. “성자님, 마음만 크면 뭐해요. 돈도 없는데요. 돈도 크게 많이 있어야 크게 마음먹은 대로 하지요.” 했다.
17. 성자는 말씀하셨다. “가령 마음은 100만 원어치만큼 크다 하자. 그런데 돈은 천 원밖에 없다 하자. 그래도 그 마음으로 행하면, 얻는다.”
18. 마음이 커야 돈이 적게 있어도 행한다. 그리고 행한 대로 얻는다.
19.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모른다. 자세히 보고 깨달아야 된다.
20.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보아도 눈으로 보기만 하면 모른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깨닫게 해 주어야 안다.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 어느 누구도 ‘성자의 사랑의 기준 차원’에서 산 자가 없으니, 성자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2. 새 역사로 와서 <성자>를 믿고 <보낸 자>를 믿고 사는 자들도 ‘성자의 사랑의 기준 차원’에서 살지 않으니,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한다.
3. (성자) ‘나 성자가 내 분체를 통해 준 사랑’과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은 사랑’과 ‘나 성자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며 주는 사랑’을 알고 사는 자는 아주 적다. 알고 행해야 그 사랑을 다 받는다.
4. (성자) ‘나 성자의 사랑을 알고 행하는 자’를 세상에 보내어 ‘나 성자의 사랑’을 보여 주며 실천하게 한다.
5. (성자) 나는 내 육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니, 그를 통해 나의 사랑을 알아라.
6. (성자) 육신 세계에서는 ‘육’을 보이며 행해야 알기 때문에, 나 성자는 내 육을 쓰고 행한다.
7. <신부의 사랑의 힘>은 ‘신랑’으로부터 오고, <신랑의 사랑의 힘>은 ‘신부’로부터 온다. ‘사랑의 힘’이 와야 ‘사랑’을 이루며 간다.
8. 신랑과의 사랑을 이루고 가는 것이 ‘신부의 구원의 길, 신부의 휴거의 길’이다. 이를 위해 신랑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며 조건을 세워 주는 길’을 간다.

9. 성자가 사랑을 주셨으니, 그 값으로 우리도 성자에게 사랑을 드려야 된다. 구원받고 휴거되어 영원히 천국에서 사랑받고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하며 늘 성자를 사랑해 드리는 것이다.

10. ‘사랑’이란, 몸과 마음과 영을 다 드리는 것이다.

11. 사랑하니 충성하고, 사랑하니 열심히 하고, 사랑하니 기뻐하고, 사랑하니 찬양하고, 사랑하니 입으로도 물질로도 감사하고, 사랑하니 시간을 드리고, 사랑하니 고백하고, 사랑하니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니 영광 돌리고, 사랑하니 몸과 마음과 영을 바치는 것이다.

12. 충성, 열심, 기쁨, 찬양, 감사, 고백, 시간을 하늘 앞에 드려도 ‘사랑해서 주는 것’과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는 것’과 ‘같이 가지려고 주는 것’과 ‘봉사로 주는 것’과 ‘나누기 위해 주는 것’은 다르다. 사랑해서 줘야 된다. 그래야 ‘신부’다.

13. 흔히 사람들을 ‘사랑’ 하면, ‘이성 사랑’을 생각한다. 이 사랑은 ‘육체를 취하기 위한 사랑’으로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랑이다. 고로 이성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며 ‘성자 사랑, 주 사랑’이 아니다.

14.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참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자기 마음에 닿아 성자와 ‘참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우주 만물>과 <지구 세상 전체>를 ‘자기’에게만 줬다 생각하고, 성삼위께 감사하고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우주>와 <지구>를 다 가진 것같이 기쁘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만큼 관리하게 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드신 것’을 쓸 때마다 감사하며, 성삼위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잃지 않는다.

17. 천국 축복의 열쇠는 ‘감사와 사랑과 간구’다.

18. 인생을 만들어라! <축복>도 ‘받을 만 한 자’에게 주신다.

19. 먼저 <시대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차원으로 행하면서 ‘육’도 ‘영’도 성장하는 것이다.

20. <성령>을 받아야 뜨거운 마음으로 성자와 주를 사랑하며 감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영적 뿌리가 뻗어 나간다.

21. <성령운동>은 ‘영적 운동’이다.

22. ‘심령이 죽은 자’는 성령을 못 받는다. 먼저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새벽잠언>

23. 첫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중’에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고, 둘째 ‘목적지’에서도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라.

24. ‘과정 중’에 낙(樂)을 누리지 않으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어떤 것은 ‘과정 중’에 얻고 끝나고, 어떤 것은 ‘목적지’에 가서 얻기도 한다. 그러니 ‘목적지’에서만 다 얻는다 생각하지 말고, ‘과정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25. <작은 것>도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서부터 낙(樂)이 있다.

26. <기쁨>은 두 가지에서 발생된다. 첫째, ‘외부’에서 와서 뇌에 엔도르핀이 발생되어 기쁨이 온다. 둘째, ‘자기 뇌’에

서 자기가 기쁨으로 감격하며 삶으로 인해 기쁨을 만들어 누리게 된다.

27. 기쁘고 즐거워야 신진대사도 잘되고, 뇌에서 엔도르핀과 다이돌핀이 분출된다. 그리함으로 각종 정신병과 육의 치명적인 병도 자체 치료가 된다. 이는 자기 정신과 마음, 영의 건강까지 영향을 준다.

28. 자기가 최선을 다했어도 ‘행한 것’이 무너지기도 한다.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때 ‘2차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거기서 또 무너질 때 최선을 다하면 ‘3차원으로 높아진 것’이다. 거기서 또 무너질 때 최선을 다하면 ‘4차원에 오른 것’이다. 거기서 또 무너져 최선을 다해 한다면 ‘5차원에 오른 것’이다.

29. 월명동 <야심작>은 다섯 번째까지 늘 최선을 다해 쌓았다. 다섯 번째까지는 ‘세상 차원으로 최고의 선(線)’이었다. 여섯 번째에 ‘하늘 차원으로 최고의 선’에서 쌓았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행하셨다는 것이다.

30. 만일 선생이 여섯 번째에는 <야심작>이 안 무너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다섯 번째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5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 거기서 더 차원을 높이지 못하여 ‘6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고로 성자는 장래 일을 안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 인간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31. 선생은 <야심작>을 여러 번 반복해서 쌓으면서,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 돌 쌓는 법’을 배웠다. 매순간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 차원의 구상’대로 돌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32. 성자가 내게 “돌을 잘 쌓아도 다섯 번은 무너지고, 여섯 번째에는 안 무너진다.” 하고 미리 말씀하셨다면, 다섯 번째까지는 형식적으로 돌을 쌓고, 여섯 번째에만 잘 쌓았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백보좌 대결작>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33. 최선을 다하여 반복하면서 ① 배우고, ② 차원을 높이고, ③ 뜻을 이루는 것이다.

34. 성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미리 답을 안 주신다. 답을 미리 알면, 답만 찾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정 중’에 얻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35.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 ‘네 번’이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네 번’ 다 무너졌을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 했다. ‘성자를 사랑하니, 꼭 이것을 해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불타고, 또한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귀히 써야지.’ 하고 희망이 불타다. 그래서 돌이 다섯 번 무너졌어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다시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다. ‘이까짓 말 못하는 돌이 넘어졌다고 그냥 하다 말라.’ 했다.

36. ‘인간으로서 최고의 기준’을 세워야 그 심정과 정신으로 더 도전하면서 사탄과 인사탄을 무너뜨리게 된다. 사탄과 악은 항상 ‘선 밑’에 있다. 고로 한계가 있다. 사탄은 인사탄과 악인들과 함께 ‘사망의 줄’에 매여서 활동한다. 아무리 끝까지 가도 ‘6수’에서 끝난다. 고로 선 편이 ‘7수’까지 끝까지 가면, 사탄과 악인들이 가는 길과 갈리게 되고, 그들은 음부로 내려간다.

37. 누구나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졌어도 또 세워라. <돌>은 ‘의’이며, ‘말씀’이며, ‘믿음’이며, ‘사랑’이다. <야심작>도 여섯 번째까지 기어이 안 쌓았다면, ‘하늘 백보좌 형상의 야심작’으로 만들지 못하고 수고만 하고 끝났을 것이다. 자기 욕, 혼, 영도 그러하다. 자기 몸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기>를 기어이 만들어라!

38. <자기>를 만들어야 ‘다른 신령한 생명의 작품’이 무너졌어도 더 좋게 쌓을 수 있게 된다.

39. <야심작>이 다섯 번 안 무너졌으면, 그 밑의 차원에서 만든 대로 사용했을 것이다. 무너질 때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때 ‘돌 쌓는 차원’을 높이게 되었다. <신앙>도, <자기 인생>도, <자기 영>도 그리하여라. 무너졌어도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여 차원을 높여라.

40. 주 안에서 끝까지 하면, 결국 잘된다!

<2014년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41. 그냥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반복하여 최선을 다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는 것이다. 그래야 차원이 높아진다.

42. 자기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잘되지 않았어도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수고로 인한 운이 항상 따른다.

43. 자기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여 생명을 전도했는데, 그 생명이 결국 잘 안 됐다 하자. 자기만 포기하지 않고 다른 생명에게 투자하면, 그 생명이 결국 잘된다. 환경도 그러하고, 축복도 그러하다.

44. 자기가 최선을 다해 수고했는데도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자기만 포기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면, 그 운이 따르면서 결국은 잘된다.

45. 수고의 공력은 무너졌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것을 다른 데 또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46. 수고했는데 공력이 무너졌다고 문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47. <사랑>도 <그 어떤 것>도 죄를 지음으로 ‘자기가 쌓은 공력과 수고’가 무너졌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다시 쌓으면 된다. ‘예전 공적’을 가지고 다시 불을 붙여 행하면 살아나기도 한다. ‘무너진 돌 조경을 다시 쌓는 격’이다.

48. 얼마든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자기 공적과 사랑이 무너졌다고 낙심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게 된다.

49. ‘작게’ 하든지 ‘조금’ 하든지 끝까지 해라. 그러면 <천국 최고의 세계>에는 못 가도 그 아래 차원이라도 간다. 그 차원에 가서 다시 열심히 해서 올라가면, 더 높이 가게 된다. 그러나 포기하면 <지옥>으로 가 버린다.

50. 1%만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성자와 주를 따라서 해라. 그러면 2%, 3%, 10%, 20%, 30%로 가능성이 생긴다. 1% 가능성을 가지고 100%를 만드는 것이다. <휴거>도 그러하다.

51. 어떤 자는 100% 했다가 무너져서 40% 남았다. 40%가 남았는데도 포기해 버린다. <성공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52. ‘휴거’에 있어서, ‘성자와의 사랑’에 있어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면 끝이다. 1%를 가지고 행하여 100%를 만들면 된다.

53. (성자) <자기 관리법>을 알아야 된다. <휴거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성자와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나 성자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해라.

54. (성자) 나 성자와 내 분체만 전적으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행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 준다.

55. (성자) 인생을 포기한 자라도 아직 육신이 죽지 않았다면, 다시 하면 된다.

56. (성자) 1000미터를 가야 성공한다 하자. ‘매일’ 1미터씩 조금씩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멀리 가서 어느새 ‘목적지’에 가까이 가게 된다.

57. (성자) 만일 100개가 다 무너지고 하나도 안 남았다 하자. 그래도 다시 하면 된다. ‘하나님 것’도 있고, ‘성령님 것’

도 있고, ‘나 성자 것’도 있으니, 너는 실오라기라도 걸칠 것이 없어도 다 벗고 맨몸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100분의 1씩 조금씩 된다.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긴다. 고로 자신이 없어도 하는 것이다.

58. <성자>는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 버리신다. <자기>가 ‘자기가 할 것’을 버리고, ‘성자’도 버리는 것이다.

59.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말아라. ‘자기 육체덩어리’는 할 수 있는데, 왜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과 생각’이 자기를 버리느냐.

60. 자기가 타던 차가 ‘기름’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인데, ‘차’가 고장 났다고 하며 차를 버린다. 파악하여 차에 기름만 넣고 가면 된다. 만일 기름이 있는데도 차가 안 가지면, 정비사를 불러 봐라. ‘사소한 것’이 고장 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마음의 시동’이 안 걸려서 안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61. 조석으로 변하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쑥스럽지만 다시 하여라.

62. 인간은 신이 아니다. 그러나 전능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면,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전능자의 말씀을 받고 믿고 행하여 신이 되어서 하여라!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정한 날>을 연장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고로 ‘남은 기간’에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재촉하고 독촉해 달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기도해라.

2. ‘재촉과 독촉’은 특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이다. 고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은혜를 받고 더 긴장하여서 빨리 행하게 된다.

3.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우리가 행하도록 도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못 한 것을 하도록 채찍질하여 말같이 뛰게 하는 것’이다.

4. <사탄의 매>는 맞으면 죽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찬바람이 나는 매>는 ‘사는 길’이다.

5.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잘해 달라고 하지만 말고, 더 뛰어라. 더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자도 더 많이 말씀해 주시어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

6. 자기는 못 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월등하게 대해 주면, ‘공의’가 아니다. 자기가 잘하니, 그 조건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이것이 ‘공의’다.

7.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스리신다. 만일 <선>이 ‘악’을 행했는데 <선>은 심판하지 않고 <악>만 심판하면, 결국 선도 악도 화를 당한다. 고로 <악>만 심판하지 않으신다. <선>도 ‘악’을 행한 만큼 심판하고, 또 <악>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공의’다.

8. 고로 <선>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신 것이다.

9. 우리가 절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이 ‘악’을 마음대로 심판하며 행하신다.

10.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도 불량배들 속에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으니, 빨리 온전히 행하여 그곳에서 나와라.

11. 성약시대로 와서 시대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신부 신앙’을 하며 살 때, 사탄도 약속대로 철수하게 된다.

1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생각이 같아야 승리한다.
13.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14. 인간은 <생각>대로 간다.
15. <생각>이 가면 <육신>도 따라간다.
16. 태양이 ‘불’로 존재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으로 존재하신다.
17. 태양이 ‘불덩이’이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덩이’이시다.
18. 기도할 때 깊이 기도해라. 할 말을 깊이 해라. 그래야 한꺼번에 깨닫고, 한꺼번에 성자의 말씀과 주의 심정을 전달 받는다.
19. 말할 때도 그 자리에서 할 말을 다 해야 전달이 잘되어 듣는 자가 이해를 잘한다.
20. 일을 할 때도 매듭까지 잘 지어야 깨끗하고 완전하다.
21. 일할 때 그 일의 매듭을 안 짓고 다른 일을 또 하면, 갈 길을 가다가 중지한 꼴이 된다.
22. 그때 할 일을 못 하면, 몇 년씩 질질 끌게 된다.
23. 지금은 <휴거 때>다. <자기 휴거 때>다. <자기를 만들 때>다. 이때 자기 할 일을 잘 매듭짓고, 말같이 재촉하면서 뛰고 달리며 목적지까지 완주하여라.
24. <기도>는 ‘자기 구원, 영혼 구원의 생명 농사’다.
25. 농부가 농사짓듯 기도해라. 농부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 줄 아느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쉬지 않고 논밭에 나가서 농작물을 살핀다. 너희도 그와 같이 기도해라.
26. <영혼>은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고, <기도>는 ‘농부’와 같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옆에 계신다. 언제 기도하는지, 네 입만 쳐다보고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대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너와 대화하기 원하신다.
28. 어떤 일을 놓고 먼저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 먼저는 기도하기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함께하여 온전하게 하게 하신다. 기도한 후에 행하기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시고 직접 행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행하기도 하시고, 여건을 틀어 주기도 하시고, 너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의 말 한 마디, 어느 때는 두 마디, 어느 때는 세 마디가 <운명>을 좌우한다.
2. 어떤 일을 놓고 ‘몇 시간’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3일’을 물어보기도 했다. 성자는 답을 주시기를 “해.” 하셨다. 이 한 마디를 듣고 행해서 10년, 20년, 30년 동안 쓸 것을 얻었고, 어떤 것은 1000년 성약역사 기간 동안 쓸 것도 얻었다.

3. 성자의 말 한 마디가 이리도 큰 값이다. 그런데 설교 때 성자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전해 주는데도 왜 행하지 않느냐.
4. 어떤 일을 놓고 “이같이 하다가는 지쳐서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 성자는 답을 주시기를 “하지 마라.” 하셨다. 그 한 마디를 듣고 안 했다. 그랬더니 7일, 10일, 30일, 한 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됐다.
5. 성자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한지 깨닫고, 꼭 물어보고 행해라. <인생 진로>도 그러하다.
6. 한 번은 서류가 잔뜩 쌓여 있어서 다 읽으려면 세 달이 걸리는 상황이었다. 어떻게 하냐고 하니, 성자는 “내 도와주마.” 하셨다. 성자는 내가 물을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선생은 그 말씀대로 답을 써서 보냈다. 성자의 한 마디 말씀으로 일순간 해결됐다.
7. 모두 깊이 기도하고 물어보아라.
8. 어떤 사람은 <필요 없는 일>을 평생 하면서 ‘자기 운명’이라 하고, ‘하늘이 주신 천직’이라 하며 골 아프게 살아간다. 성자가 보실 때 ‘천직’이 아니고, 무지하여 ‘고통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다.
9. 성자의 말 한 마디로 10억 원, 100억 원이 좌우된다. 그 한 마디로 평생 편하게 살게 되기도 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기도 한다.
10. 성자를 따라가면 ‘성자의 주관’대로 살게 되고, 안 따라가면 ‘네 주관’대로 살게 된다.
11. <생각>도 <행실>도 <몸>도 다 같이 성자를 따라가는 자만 변화된다.
12.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일했는지 ‘시간’만 따지지 말고, ‘일한 표’가 나도록 할 만큼 일해라.
13. 기도도 그러하다. 시간만 재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다 하지 말고, 할 만큼 해라. 그래야 기도해도 ‘기도한 표’가 난다.
14.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의 표’가 많이 난다.
15. 기도하고 나서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희망찬 기도’다.
16. 기도하면서 약속도 하고 대화도 해라. 이것이 ‘살아 있는 기도’다.
17. 지구 세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해야 된다.
18. 기도해 놓고 봐라. 자기가 어느 정도 기도했는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19.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정말 안 된다는 입장으로 기도해야 된다.
20.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는데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듯 해야 된다.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다. 곧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니 꼭 해결해야만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란, 그의 몸이 되고 그의 편이 되어서 그와 일체 되어 그가 원하시는 일을 해 주는 것이다.
22.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란, 성자의 몸이 되고 성자의 편이 되어서 성자와 일체 되어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

주는 것이다.

23. 성자와 주의 몸이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 주어라.

24. 성자와 주의 편이 되어서 그를 증거해 주어라.

25. ‘자기 몸’은 ‘자기 생각’을 행함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신부라면, ‘자기 몸’을 가지고 ‘삼위의 생각’을 행해라. 그래야 인간으로서 ‘신적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삼위의 생각을 행함으로 ‘뜻’을 이루게 된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자기 몸’으로 행하면, ‘그 영’이 하늘나라의 형체로 변화되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28. ‘생각’과 ‘육신’이 따로 놀면, ‘생각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 ‘육’도 ‘생각’도 곤고해지고 수고도 헛되게 된다.

29. ‘삼위일체의 생각’과 하나 되어 ‘자기 몸’을 가지고 행할 때,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행하게 된다.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새벽잠언>

1. 사람이고 만물이고 가까워야 더 가치가 있고, 가까워야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더 느낀다.

2. 사람도 가까워야 이웃사촌 된다.

3. 땅도 집에서 가까워야 문전옥답이다.

4. <가까이 있는 솔>이 좋은 공기를 주고, 여름에는 그늘을 주고, 눈에 가까이 보여 더 정이 가고 사랑이 가고, 가까우니 솔향기를 맡게 된다.

5. 성자와 주 앞에도 누구든지 작든지 크든지 ‘생각과 행실와 몸과 혼과 영’이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자다. 귀한 자다.

6. 성자와 최고로 가까운 자가 세상에서 금 같은 자다. 권세 있는 자다. 능력자다. 삼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다. 삼위께 최고로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 그를 ‘시대 구원자’로 보내고 그와 함께한다.

7. 성자를 깨달아라. 주를 깨달아라. 깨달은 자가 가까이 느낀다.

8. 한 그루의 소나무도 가까워야 ‘좋은 향기와 좋은 공기’를 주고, 늘 눈에 보여 ‘사랑’이 가듯, 성자와 가깝고, 성자가 보낸 자와 가까운 자가 ‘몸도 마음도 행실도 혼도 영도’ 일체 되어 산다.

9. 성자와 멀고, 성자가 보낸 자와 멀면 하나 된 것이 아니다.

10.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나는 성자와 주와 하나다.” 하는 자는 ‘말’뿐이다. 오직 성자의 뜻대로, 주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자와 주와 하나 된 자다.

11. 하나님을 가까이해라. 성령님을 가까이 해라. 성자를 가까이해라. 주를 가까이 해라. 가까운 자에게 ‘사랑’이 가고, ‘운’이 간다.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새벽잠언>

12. 진정 깨닫고 알아라.

13. 깨달았다는 것은 ‘은’같이 보이던 것이 ‘금’같이 귀히 보이는 것이다.

14. 깨달았다는 것은 인식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15. <육적>으로 깨닫지 말고, <영적>으로 깨달아라.

16. 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취하고 사느냐. 진정 깨닫지 못한 연고로다.

17. 왜 ‘비진리’를 ‘진리’로 취하고 사느냐. 진정 진리를 깨닫지 못한 연고로다.

18. 지도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다루면, 각종 실수를 해도 모른다. ‘생명’에 대해, ‘시대’에 대해, ‘주’에 대해, ‘말씀’에 대해 진정 깨닫고 생명을 다루라.

19. 깨닫지 못하고 살면 육신 일생 동안, 영 영원히 큰 손해다.

20. <깨달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육적>으로 깨닫고, 둘째, <영적>으로 깨닫는다.

21. <영>은 <육>보다 차원과 수준이 훨씬 더 높다. 고로 깨달을 때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22. <육>이 깨달으면, ‘육의 것’만 깨닫고 ‘육의 허무’만 깨닫는다.

23. 구원자를 제대로 깨달아라. 깨달았으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아직도 많다.

24. 신약 때도 ‘예수’를 깨달았으나 <육적>으로 깨달았기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

25.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원자’를 <육적>으로만 깨달았기에 그는 ‘시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되었다.

26. 깨달으면 자기 것을 하늘 앞에 다 드리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며 따르고,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주의 길을 막으며 전능자의 마음을 거스른다.

27.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아라. 깨닫기는 하는데 <육적>으로 깨달으니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 이 허무하다는 것’만 깨닫고 산다.

28. 인간 우상 종교들과 이단을 보아라. <육적>으로 깨달으니 사람을 중시하여 섬기고, 성경을 그릇되게 풀고 자신들이 옳다고 한다.

29. 성자와 주를 바로 깨닫고 알아라. <육>으로 눈 떠서 깨닫고 좋아하지만 <영>으로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야 인식이 뒤집어진다. ‘은’으로 봤던 것을 ‘금’으로 다시 보고 귀히 여기게 된다.

30. 깨달아야 <육>도 10배, 100배 유익이고, <영>도 영원히 유익이다.

31. 베드로가 자기 선생 예수를 제대로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듯이, 성자와 성자가 보낸 구원자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그릇된 주관이 바뀌어 지금 휴거 때 묶인 죄고랑이 풀린다.

32. 섭리사에 가장 귀한 것 중 하나가 ‘시대 보낸 자 바로 알기’다.

33.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지식’이다.

34. 성자와 성자가 보낸 자를 확실히 깨달은 자는 성자도, 성자가 보낸 자도 달리 대한다.
35. 성자와 성자가 보낸 자를 대하는 것을 보면, 성자와 보낸 자를 확실히 깨달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36. <구원자>를 진정 깨달았다면,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무지를 개탄하고 탄식하면서 회개한다. 그때 ‘인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행실과 생각’이 뒤집어져 주 뜻대로 행한다.
37. <구원자>를 진정 깨달았다면, ‘인식’이 뒤바뀌고 ‘마음과 행실’이 모두 뒤바뀌어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재촉하면서 행한다.
38. <구원자>를 진정 깨달았다면, 자기 죄를 확실히 고백한다.
39. 성자를 깨닫고, 성자가 보낸 구원자를 깨달은 자는 ‘말’로만 회개하지 않는다. ‘인식’이 뒤바뀌고 ‘마음과 행실’이 뒤바뀌어 뜨겁게 통곡하며 ‘행실’을 의롭게 한다. 그리고 진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 / 성자는 이런 자들만 그 욕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신다.
40. ‘너의 죄’를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낱알이 고해라. 너는 죄인이니 의인의 이름으로, 성자가 보낸 자의 이름으로 고해라. 그가 ‘시대의 죄’와 ‘너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이 시대’를 위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고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와라.

41. <회개>도 ‘구원자’를 진정 깨닫고 해야 된다.

42. 회개하되 ‘구원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니, <휴거 길> 중간에서 발이 묶여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43. 진정 깨닫고 살아라.

44. <깨닫는 것>은 마치 자기가 시험을 볼 때 “이것이 답이다!” 확실히 알고 감탄하면서 확실히 아니까 즉시 답을 쓰듯 하는 것이다.

45. 옷이나 물건을 사러 가서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면, 누가 사 갈까 봐 꾸물대지 않고 즉시 사게 된다.

46. 깨달으면, 즉시 행한다. 고로 행하지 않는 자는 ‘깨달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47. 깨달았다면, 즉시 행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48. 주를 진정 깨달았다면, 따르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 주를 진정 깨달았다면, 누가 뭐라 해도 등을 돌리지 않는다.

49. <아는 것>은 ‘욕’으로만 아는 것이다. 고로 즉시 행해지지 않고, 알았다가도 등을 돌려 떠나게 된다.

50. <깨닫는 것>은 욕도 혼도 영도 아는 것이다. 고로 즉시 실천하게 되고, 절대 등을 돌리지 않는다.

51. 깨달아야 ‘영’이 온전히 알고 휴거된다.

52. <구원자>를 5년, 10년, 20년 따랐어도 깨닫지 못했기에 잘못된 이론을 듣고 흔들리고, 섭리사를 나가서 악평하고

반대한다.

53. ‘주’를 깨닫고 따라라. 깨닫고 믿어라. 깨닫고 행해라. 성령으로 깨닫고, 성자의 생각으로 깨달아라.

54. 깨달으면 ‘더 좋은 것, 옳은 것, 온전한 것’을 분별하고 취하게 된다. 그리고 평생,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55.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손해가 가고 고통을 받고, 더 나쁜 것을 더 좋게 여기고 살게 된다.

56. 성자와 주를 알았다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는 ‘좋은 날’에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며 잘하는 것 같지만 ‘시험의 날’에는 악한 자에게 끌려 다니고,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치우쳐 믿음을 저버린다. 그리고 너도 그 이론을 배워 보라고 하며, 사탄의 욕이 되어 생명들을 찌른다.

57. 지도자들과 증거자들은 부지런히 ‘시대와 주’를 가르쳐 깨닫게 하여라. 모르는 자들의 ‘인식’을 뒤바꿔 놓아라! ‘진짜 금’을 ‘금’으로 보게 해 주어라.

58. 깨달은 자, 휴거된 자가 가르쳐야 입에서 <성령의 불>을 내뿜고, <성자의 뜨거운 말씀의 불>을 내뿜으며 뜨겁게 확실하게 가르친다.

59. 확실히 깨달은 자들은 ‘사탄의 이론, 악인들의 이론’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다 물리치고 이긴다.

60. 어린 신앙인이란도 진정 깨달은 자들은 ‘성자와 주’ 앞에 절대 등을 돌리지 않으며, 숨 가쁘게 시대를 증거하고 외친다.

61.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해라. <육>으로 깨닫고 판단하지 말고, <영>으로 깨닫고 판단해라.

62. 깨달은 자는 ‘성자와 분체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성자와 분체와 완전히 하나 된 자’다.

63. 깨달아야 차원 높이 살게 되고, 깨달아야 마음에 시동이 걸려 뛰고 달리며 날게 된다.

64. 깨달은 자라도 첫사랑이 식으면, 깨달은 데 둔해지고 생명길을 잃게 된다. 네 첫사랑을 지켜 식지 않게 해라.

65. 각자 <자기 때>가 되면, 성자가 그 욕을 통해 말씀하고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한다. 깨달은 자는 확실히 아니, 재촉하고 서두르고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그때 할 일’을 집중해서 해 버린다.

66. 깨달으려 하기 전에, 깨달도록 먼저 기도해라. 그래야 성자가 그 욕을 통해 말씀했을 때, 뜨겁게 감동을 받고 굳건하게 행한다.

67. 진정 깨달아라. 더 깨달아라. 그리함으로 스스로 재촉하고 서둘러 <휴거 길>을 가라. 환난 전에 온전히 휴거되어라.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무엇을 찾으려고 해야 보이고 찾아지듯이, 깨달으려고 해야 깨달아진다.

2. 그냥 보면 안 보인다. 깊이 봐야 달리 보인다. 이와 같이 깊이 생각해야 달리 생각하게 된다.

3. 사람이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달으면, 그같이 안 산다.

4. 사람이 더 깊이 보면, 원래 사려고 했던 것을 안 산다.

5.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하면, 저 사람을 전도한다.
6. <성자의 계시>는 ‘만드는 것’아 아니라 ‘받는 것’이다.
7. 계시를 받기 위해서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계시를 만들면, <자기 주관적 계시>가 된다.
8. 성자의 계시를 전하는 데 쓰이는 귀뚜라미가 없어져서 또 구해다 놓으려 했더니, 성자는 “계시를 만들지 말아라.” 하셨다. 없어진 것이 계시이기 때문이다.
9. <작은 것>은 ‘작은 데’ 써야 된다.
10. “벚꽃은 순간 피고 지는 꽃이니, 별로다.” 하지 말고, 그 순간에 뜻 있는 행사를 하면서 쓰면 된다. 만사가 그러하다.
11. 사람이고, 만물이고, 그 무엇이고 기간이 짧다고 안 하면 못 한다.
12. 짧은 시간도 짧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난다. 짧은 시간은 짧게 쓰면 된다.
13. 활용하지 못하면, 없는 것과 같다.
14. 짧은 시간도 활용해라. 작은 것도 활용해라. 그 무엇이든 쓰기에 달려 있다.
15. 잘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자꾸 접해라. 그러면 안 잊어버린다.
16.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봐 준다.” 함이다.
17.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사명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에 화가 없어지게 기도하여라. 그러면 속상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돌이키게 해 준 ‘구원의 사명자’의 말을 듣고 분노하지 않으신다.
18.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불가능해도 ‘구원의 사명자’의 말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화와 분노를 없애 준 ‘사명자’의 기도를 들어 주어 화와 분노를 없앤다 함이다.
19. <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고로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고로 회개하여 청산해야 된다.
20. <죄>는 마치 길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와 같아서 사람들이 발로 밟고 차로 밟고 지나가듯 하게 된다. 고로 회개해야 더 이상 밟히지 않는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의 세계로 보내어 그동안 행한 대로 다 받게 하신다.
22. 고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어 ‘그 기간 안’에 회개하라고 알아듣게 말씀하신다. 자기 죄를 알고,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통회자복하며 성자와 그 육에게 회개해야 된다.
23.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해한 것도 ‘죄’다.
24.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죄’다. 고로 스스로 해를 받게 된다.

25. 회개해라. 회개는 ‘재활용’과 같다.

26. 회개하면, 못 쓸 인생을 재활용하여 다시 쓰게 된다.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깨닫고 보라. 깨달아야 <인식>이 뒤바뀐다.

2. 인식관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로 보이고, ‘금’으로 보이고, ‘은’으로 보인다.

3. <구원자>를 ‘일반 사람’으로 인식하고, ‘큰 자’로만 인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만 인식하면, 어떻게 따르겠느냐.

4. <지옥>을 마치 ‘세상의 고생하는 세계’같이 인식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어떠냐?” 한다. <지옥의 고통>은 ‘세상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된다. 다시 인식해라.

5. <지옥>에서는 영이 영원히 갖은 고통을 받으며 지옥에서 산다. 다시 인식하는 자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6. 쪼그리고 걸으면 좋다고 하니까 ‘쪼그리고 걷는 것’만 좋다고 인식하여, 늘 쪼그려 앉아서 걷는 운동만 했다. 결국 무릎 관절이 나가서 수술하게 됐다. 인식을 제대로 못 하니, 큰 해를 당했다.

7. 깨달아라. 인식을 달리해라. 그래야 생각이 달라지고, 행실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영이 변화되어 휴거된다.

8. <구원자>도 다시 깨달아라. 인식을 달리해라. 그래야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절대 주 말씀대로 행하고, 누가 뭐라 해도 등을 돌리지 않으며,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따르며, 일체 된다.

9. <인식>을 잘못 하면, 그대로 생각과 삶의 ‘길이 들어서’ 고생한다.

10. 사람은 <인식관>대로 길이 들어 살다가 ‘사망길’로 간다.

11. <뇌>는 ‘입력기’다. ‘인식관’이다. ‘사고의 핵’이다.

12. 하나님도 없다고 뇌에 입력해 놓으면, 하나님이 절대 있다고 믿고 사는 자처럼 강하게 생각하고 부인한다.

13. 인식을 잘못 하고 살면, 자기 그릇된 인식대로 행해진다. 고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인식이 잘못되면, 인생도 망친다.

14. 구시대 종교인들은 ‘구시대 사고’를 가지고 산다. 새 시대로 왔으면, ‘구시대 사고와 인식’을 버려라.

15. 자기가 생각한 곳에 ‘샘’도 있고 ‘계곡’도 있다고 인식했다 하자. 아니라고 말해도 안 믿는다. 자기가 직접 가서 그 곳은 ‘논과 벌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제야 자기가 착각하고 잘못 인식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돌이킨다. 구시대 종교인들은 이같이 ‘착각과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새 시대로 와서 보고 배워야 인식이 돌아간다.

16. 어느 날 편지를 써 냈는데, 한 장이 없어져서 못 보내고 있었다. 온종일 방을 다 뒤져봐도 없었다. 일주일을 찾아도 없었다. 그 후에 내가 잃어버린 편지를 보내려 했던 자가 내게 편지를 보내오기를 “편지 잘 봤어요.” 했다. 그 편지를 받고 “이게 영계야? 육계야?” 했다. 알고 보니, 내가 이미 그 전 날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도 같이 보낸 것이었다. 그런데 안 보냈다고 착각하고 찾은 것이다. 저 기성도 ‘이 시대와 성경’을 그릇되게 잘못 배우고, 2000년 동안 그리 알고 살고 있다. 고로 아는 자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며, 인식을 바꿔 주고 제대로 깨닫게 해 줘야 된다.

17. ‘잘못된 인식, 잘못된 사고, 착각’ 때문에 화가 나고 오해하여 <귀한 것>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버리고, <주>도 배신하고 버리는 것이다. 고로 ‘확인’해라.
18. <인식관>은 시멘트같이 때가 되면 굳어버린다. 고로 ‘잘못된 인식관’을 깨고, 다시 ‘머리 공사, 두뇌 공사’를 해라. ‘두뇌’는 평생 매일 쓸 것이니, ‘그릇된 인식관’을 고쳐라.
19. 오직 ‘구원자’, 곧 ‘주’가 표상이다. 그를 표상으로 하고 중심으로 하여 <인식>을 바로 해라.
20. 성자의 말씀대로 깨닫고 인식하기다. 성령으로 깨닫고 인식하기다.

<2014년 11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는 시간>은 날아간다.
2. 사람의 <체질적>으로 ‘사랑의 기’가 있듯이, <정신적>으로도 ‘사랑의 기’가 있다.
3. <체질적인 사랑의 기>는 한계선에서 멈추지만, <정신적인 사랑의 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항상 운행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는 마치 ‘지구의 공기’와 같이 ‘사랑의 기’가 꼭 차 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려 하지 않고 느끼려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기’를 느끼지도 못 하고 받지도 못한다.
5. <사랑>은 ‘자기 자체로 일어나는 기’가 있고, ‘상대로부터 오는 기’가 있고, ‘상대가 자기를 생각함으로 일어나는 기’가 있다.
6. <전능자의 무한한 사랑의 기>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가 전능자에게 사랑을 주지 않음으로 전능자와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사랑의 근본 대상’이다. 고로 우리가 사랑을 주기만 하면, 그 사랑을 다 받으신다. 그때 삼위일체와 접촉되어 ‘삼위일체의 사랑의 기’를 받게 된다.
8.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는 ‘깨끗한 몸과 마음’이 기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하고 사랑할 때도 ‘죄를 회개하여 깨끗해진 정결한 몸과 마음’이 기본이다.
9. <육체의 사랑>은 ‘육체’를 이루고, <영의 사랑>은 ‘영’을 이룬다.
10.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체>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육체적 사랑체>로는 한계를 정하여 한계까지만 사랑을 누리도록 하였고, <영적 사랑체>로는 사랑에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다.
11. <육체의 사랑>은 ‘1’, <영의 사랑>은 ‘10’으로 정하셨다. 이는 ‘육적인 허무한 존재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12. <자기 사랑>을 못 다스리면,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시달리게 된다.
13. 사랑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차를 잘 운전하고 다스려 사고 없이 편히 가는 것과 같다. <자기 사랑>을 잘 다스려 ‘사랑’으로 인해 시달리지 않고 사고 없이 살아라.
14. 누가 자기를 다스리겠느냐.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자기’에게서 나온다. 곧 마음이다. 정신이다. 생각이다.

15.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자기를 다스리되, 삼위일체와 구원자의 말씀을 받고 힘을 받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려라.

1. <정신>은 ‘정신’으로 주관하고 다스려라.

2. <흐리멍덩한 정신>은 ‘확실한 정신’으로 다스려라.

3. <졸리고 혼미한 정신>은 찬물로 머리를 감거나 머리에 자극을 주어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정신’으로 잡아라.

4. 과녁판에 화살을 쏘듯, 총알을 쏘듯 정신 차리고 살아라. 집중하여 골프공 넣듯, 농구공 넣듯, 축구공 넣듯 정신 차리고 행해라.

5. <생활의 의의 경기>에는 혼자 행하더라도 항상 ‘상대’가 있다. 바로 ‘자기’라는 상대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혼자 해도 패한다. 정신 차리고 결심하고, 신적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 행해라.

6. 오직 삼위일체와 주의 말씀과 정신과 힘을 받아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다스리도록 기도해라!

7. 자기 자신이 인정하도록 기도해라. 자기도 인정 못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도 상달되지 않는다. 다시 기도해라.

8. <사랑하는 시간>은 날아간다.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랑하는 시간이다.

9.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과 정신과 심령이 좋은 것은 그때는 잡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붙잡고, 성자와 1대1로 대화하기 때문이다.

10. <기도하는 시간>은 사람들과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 마음까지 스스로 단절하니, 최고로 편한 시간이다. 이때 자기 마음을 드리는 대상을 ‘누구’로 두느냐가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대상이다.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잡생각이 나면, “없어져라!” 하고 스스로 명령해라. 그러면 뇌에서 ‘잡생각’이 지워진다. 생각한 것이 뇌에 있을 때,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면 없어진다.

2. 자기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입력하면, 뇌에 저장된다. ‘입력한 그 생각’을 없애려면, 생각으로 “없애겠다!” 해라. 그러면 뇌에 저장된 것이 없어진다.

3. 집중해서 생각하면, 뇌에 저장되어 계속 생각한다.

4. ‘이성’이나 ‘불의한 것들’도 생각하면, 뇌에 저장된다. 기도하여 없애겠다고 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면서 없어진다.

5. 자기가 ‘불의한 생각’을 하다가 자기 책임 하에 ‘불의한 생각’을 부정하며 스스로 “없어져라!” 하고 명령하면, 뇌에서 그 생각이 없어진다.

6. 모두 실습해 보아라. 비디오를 찍으면 저장되듯, 잡생각을 하면 뇌에 저장된다. 찍은 화면을 지우는 스위치를 누르면 녹화된 것이 지워지듯, 뇌에 저장된 ‘불의한 생각’이나 ‘잡생각’도 자기가 명령하여 “없애겠다!” 하면 없어진다.

7. 이렇게 ‘불의한 생각’은 자기 스스로 명령하여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육신이 행하여 지은 죄’는 자기 영까지 그 죄를 받아서 죄가 형성되었기에 하나님 앞에도 죄가 된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성자 앞에 회개해야 없어진다.

8.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접하거나 행하면, 뇌에 저장된다. 그러나 자기가 불의한 것을 싫어하고 없어지라고 명령하면, 종이에 쓴 글을 찢어 없애듯 없어진다.

9. 어떤 사람은 뇌에서 ‘불의한 것’을 지우려 해도 ‘과거에 자기가 행한 것들’이 자기 뇌에 저장되어 있으니 자꾸 생각나서 괴롭다고 한다. 없어지라고 명령해도 안 없어지는 것이 있다. 그때는 기도하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찢값으로 의의 조건도 세워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뇌에 저장된 불의한 것들과 수치스러운 것들’을 지워 없애 주시고, ‘영의 죄’도 지워 없애 주신다. 그때 육도 마음도 영도 깨끗하게 되어 ‘생각’을 달리 하니, 다시는 ‘과거에 자기가 행했던 불의’가 생각나지 않는다. 행여 생각난다 해도 그것은 ‘심리적인 것’이니, 상관없다.

<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실천이 승리다.

2. 행한 것이 승리다.

3. 행하지 않은 것이 패배이며, 실패다.

4. 무엇이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으면, 승리한 것이다.

5.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기에 따라서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죄’는 자기가 없앨 수 없다.

6. 이 세상 전체는 <천국>이 되지 못한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주관권으로 나와야 <천국>이며 <의의 나라>다. 고로 이 세상의 <죄의 주관권>에서 자기가 나와야 된다.

7. 저마다 ‘개인’을 의롭게 만들어라.

8. 사망 주관권, 죄 주관권 속에서는 <이상세계>, <천국>, <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로 ‘자기’를 <사망>에서 나오게 하기다.

9.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이집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만들 수 없었다. 고로 하나님은 ‘모세’를 영도자로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생명의 주관권인 광야>로 나오게 하셨다.

10. ‘새로운 땅, 더 이상적인 세계’로 나오는 역사다.

11.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약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다.

12. 개인의 삶도 ‘보다 더 이상적인 세계’로 나오기다. 이것을 행해야 승리다.

13. <죄의 주관권>, <사망의 주관권>, <옛 주관권>에서 나와서 행한 자가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

14. 세상 전체를 <천국>같이 만들려 하지 말고, ‘자기’가 <의의 주관권, 천국의 주관권>으로 나오기다.

15. ‘개인 승리’를 해야 된다. ‘이긴 자들’이 모여서 <이상세계>를 만든다.

16. 구시대는 벗어날 때까지 구시대다. 고로 <구시대>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펴지 못한다. ‘새로운 역사’를 펴려면 <새 시대>로 나와야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구시대>에는 ‘구시대에 해당되는 것들’만 주셨다. 구시대를 벗어나 <새 시대>로 와야

‘새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새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

18. 새로운 세계 섭리사에서 살아도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조건’을 세우며 행해야 된다.

19. 행하지 않는 자는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한다.

20. 걸어가라. 뛰어가라. 그리고 힘써서 만들어라. 힘써서 행해라. 그래야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21. 고생돼도 집을 지어야 새 집을 얻듯이, 행해야 새것을 얻게 된다.

22. ‘옛것’을 가지고서 <이상세계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새것’을 얻고 행해야 <이상세계의 삶>을 살게 된다.

23. 100% 목적을 두고 행해라. 그러면 100% 얻는다.

24. 얻고 행해야 ‘희망’이 이루어진다.

25. 하나님의 축복은 ‘얻는 것’이다.

26.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행해라. 행하는 만큼 얻게 된다.

27. <보이는 욕의 것>은 실제로 행해야 얻는다. <안 보이는 영의 것>도 ‘욕’이 행해야 얻는다.

28. <눈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행하여 손에 쥐고 사는 것>이 ‘목적’이다.

29.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행해서 손에 쥐어야 한다.

30. ‘자기 것’이 돼야 자기가 주관하고 다스리게 된다.

31. 행하되, 꼭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허락하신 뜻 안에서 행하기다.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32. 의인들은 행하여 ‘선과 의, 진리와 사랑’을 얻는다. 그것을 얻어서 쓰고 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

33. 행악자들은 행하여 ‘악과 불의’를 얻는다. ‘악’을 얻어서 쓰고 행하다가 ‘사망’을 얻게 된다.

34. 자기 자신을 잘 운전해라. <사망길>로 운전하지 말고, <영생길>로 운전해라.

35. <섭리역사>는 ‘새 역사’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더 새로운 세계’로 나왔고, 더 새롭게 행하면서 ‘더 이상적인 것’을 얻었다. 처음에는 전셋집과 남의 땅을 빌려 쓰면서 역사를 펴 왔다. 이제는 자연성전을 개발하여 새로운 땅을 차지하여 쓰고 있다.

36. 섭리역사는 <역사적인 가나안 땅 역사>다. 그러나 여기서 또 ‘새로운 시대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이상세계를 이룬다.

37. ‘새로운 것’을 얻으려 하느냐. 차원 높은 삶을 살아라. 목적지로 가는 삶을 살아라. “목적지에 다 왔다. 다 얻었다. 더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면, 더 이상적인 것을 얻지 못한다.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가라. 거기에 ‘더 이상적인 새 것’이 있다. 거기까지 끝까지 가야 얻는다.

38. ‘새 것’을 얻고 살아도 ‘그 새 것’을 가지고 더 행해라. 조건을 세우며 행하는 만큼 얻는다.
39. <개인>이 조건을 세우면 ‘개인’이 얻고, <단체>가 조건을 세우면 ‘단체’가 얻는다.
40. 행하여 새 것을 얻는 자가 그로 인해 힘을 받고 또 행하여, ‘더 이상적인 것’을 얻게 된다.
41. 개인도 시대도 ‘얻을 때’가 왔으니, 얻어라!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당대>에 얻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얻을 것’이 <후대>로 넘어가게 된다.
42.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최선의 것’을 얻는다.
43. 최선을 다해 ‘산 정상’에 올라야 동서남북을 다 보며 보람을 누린다.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모든 것을 다 얻고 산다.
44. 최선을 다하면 ‘최고의 것’을 얻게 된다. ‘최선의 것’을 얻으니 ‘최고의 만족’을 한다. 그리함으로 ‘최고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45. 노력하고 연구하여 자기 실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다.
46. ‘최선의 것’을 얻었다 함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얻었다 함이다.
47. ‘최선의 것’은 황금보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고, ‘그다음의 것’은, 동, 철 같은 것이다.
48. 최선을 다해야 ‘그 센터에서 최상의 것’을 얻게 된다.
49. ‘최선의 것’을 얻으려면, 100% 행하기다.
50. 사탄은 ‘6수’라서 그 주관권까지만 활동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권은 ‘7수’다. 최선을 다해서 ‘7수’까지 올라가라. 최선을 다한 곳은 ‘7수’다. 고로 최선을 다한 곳에는 사탄이 못 간다.
51. 최선을 다하면, ‘뜻’이 이루어진다.
52. 행하되, 완성해라. <미완성의 실천>으로는 ‘완성’이라는 최고의 것을 구경하지도 못한다.
53. 작은 것도 큰 것도 완성해야 ‘완성한 형체’를 볼 수 있다.
54. 휴거도 완성해라. 그래야 ‘완성된 영의 형체’를 볼 수 있고, ‘완성된 천국’을 볼 수 있다.
55. 어떤 것을 행할 때나 신앙을 할 때나 자기가 ‘미완성’으로 행하면, 자기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미완성 상태’에서 끝난다. 자기가 ‘완성’으로 행하면, 자기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완성된 상태’에서 쓰고 누리고 변화되어 산다.
56. 인생은 자기 행위대로 ‘형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57. 최선을 다해 행하여 ‘완성된 형체’를 보고 쓰고 누리고 살아라.

<2014년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에 맞는 곳’이 우선 마음에 편하니, <악인>은 ‘악인’을 찾아가서 ‘악’끼리 서로 대화하며 산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악끼리 의존하면서 견딘다.

2. <악인>은 마음이 편하려고 ‘악’을 찾아가고, <선인>은 마음이 편하려고 ‘선’을 찾아가고.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3. 자기가 악하면 ‘악’을 찾아가서 사는 것이 편하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악’이 편하다. 회개하면 ‘악 편’에서는 괴로워서 못 산다.
4. <악>은 ‘악’을 찾아가고. ‘악’이 편하고 좋으니까 간다.
5.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에게 가야 마음이 편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가야 마음이 편하다. 끊을 때까지는 그것이 편하다.
6. 이성 범죄자도 그러하고, 악평자도 그러하다. 회개할 때까지는 이성 범죄를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악평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나 회개하면, 더 이상 괴로워서 거기서는 못 산다. 고로 그때는 죄 없는 곳이 편하니, 거기서 나온다.
7. <악 속에 산다는 것>은 ‘회개가 안 된 것’으로서 ‘선이 아니라는 것’이다.
8. 악 속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 욕이 악을 행한 행위’대로 ‘그 영’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9. 영계나 육계나 ‘자기 행위’대로 결정되어 살아간다. <그 행위>가 ‘흰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 회색,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하자.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행위의 색깔’대로 뭉친다. 검은색인데 단 한 명도 흰색으로 못 가고, 흰색인데 단 한 명도 검은색으로 못 간다. 영이 거할 곳을 배치할 때는 이와 같이 ‘행위의 색깔’이 또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자기 색깔대로 그 위치에 간다. 그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회개하고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10. 이 세상에서 의롭게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악한 주관권>에서 살다가 ‘그 영’도 <그 세계>로 간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결판이 난다.
11. 이 세상에서 ‘욕’을 보면 “서로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하면서 같이 살지?” 했다. / 영계에서 보니 ‘그 성격과 마음과 행위’가 ‘같은 방향, 같은 체질’이라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것이었다.
12. 결혼해서 사는 자들을 보아라. 겉만 보면 “서로 저렇게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살지?” 한다. / 속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비슷하니, ‘생긴 것’은 달라도 같이 사는 것이다. / 영계도 그러하다.
13. 섭리인들을 보아라. ‘생긴 것’을 보면 다 다르다. 그런데도 같이 산다. 이는 ‘말씀’이 같고, ‘그 말씀대로 뻗어 간 정신과 사상’이 같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휴거되기만 하면, 영계에 가서도 같이 산다.
14. 전도해서 ‘말씀’을 확실히 넣어 줘야 ‘같은 섭리 민족’이 된다.
15. 자기 영이 ‘어떤 영계’에 갈지 확인할 것도 없다. 자기가 말씀을 믿고 행한 심정과 행위의 기준으로 간다.
16. 새벽 1시에서 4시까지 세 시간 동안 기도하고 다리가 저려서 다리를 펴고 주무르며 기도를 중단하고 있는데, 순간 환상을 보니 내가 높이대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내 육과 마음과 혼의 상태’였다. 즉시 다시 기도했다.
17. 기도하지 않는 자는 높이대에 빠지듯 한다.
18.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육과 마음과 혼’이 높이대에 빠지듯 한다는 것이다.
19.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높이대에 빠진다.

20. 기도하니, 반대로 생명을 구하러 다니는 것이 보였다. 기도하니, 그 조건으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다.

21. 인간은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몸’이 간다.

22. <마음이 변질된 자>는 ‘육신이 죽은 자’와 같아서 바로 썩는다.

23. <변질>은 ‘운명’을 달리 만든다. ‘구원길’로 가던 자가 ‘어둠’으로 가게 된다.

24. 변화되지 않으면 자꾸 변질된다. 고로 꼭 변화돼야 한다.

<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동물은 먹을 것을 잡을 때나 싸울 때나 ‘이빨과 발톱’을 사용한다.

2. (성자) 동물은 ‘이빨’로 잡지만, 사람은 ‘말’로 잡는다.

3. (성자) 나를 ‘말’로 잡아라. 기도로 대화하자.

4. (성자) 동물은 ‘이빨’이 무기이고, 사람은 ‘말’이 무기이다.

5. (성자) 누구든지 <자기 생각>으로 살면 ‘자기 길’로 가진다.

6. (성자) <내 생각>으로 살아야 ‘나 성자의 길’로 가진다.

7. (성자) 나 성자가 생각하게 하려면, 네 마음을 비워라. 비워진 마음 그릇을 내게 주어라.

8. (성자) ‘네 마음’과 ‘나 성자의 마음’을 분별하여라.

9. (성자)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다.

10. (성자) 자기 생각은 너무도 차원이 낮아서 금방 알 수 있다.

11. (성자) <나 성자의 생각>은 ‘내게서 오는 것’이고, <자기 생각>은 ‘네 마음에서 솟는 것’이다.

12. (성자)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모르느냐. ‘자기 마음’과 ‘나 성자의 마음’도 모르느냐.

13. (성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면, 나의 일을 해도 ‘자기 길’로 가게 된다. ‘나 성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14. (성자) 나 성자가 준 연못의 나무가 ‘나의 마음’이라면,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라. 그것이 ‘나 성자의 마음’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15. (성자) 분체야. 네 앞에 온 전자를 보아라. 큰 사명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육신마저 죽어 끝나지 않았느냐. 내가 너 보고 37년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16. 들판에 나가보니, 모두 ‘들개’뿐이었다. ‘집개’들이 집을 나가서 ‘들개’가 된 것이다. ‘집개’도 집을 나가면 ‘들개’가 된다.

17. ‘집개’는 주인을 따라서 집에서 살고, ‘들개’는 주인을 버리고 들에 나가서 산다.
18. ‘들개들’이 떼를 지어 다니니, ‘사냥꾼들’도 떼를 지어 들개들을 사냥하러 다닌다.
19.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던 ‘집개’가 왜 ‘들개’를 따라가겠느냐. 주인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20. ‘들개’가 되면 주인이 주는 밥이 어디 있느냐. 먹을 것이 없으니, 주인이 기르던 양들과 가축들을 잡아다 먹는다. 그러다 결국 주인에게 사냥을 당하게 되고, 자기도 강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힌다.
21. ‘들개’는 사람보다 이빨이 강하고 무섭다. 고로 사람은 못 당한다.
22. 사람이 들개같이 ‘이빨’로 물어뜯고 싸우면 지지만, 사람이 ‘머리’로 싸우고, ‘칼, 총, 활, 각종 몽둥이’로 싸우면 이긴다.
23. <기도>가 칼이다. 총이다. 활이다. 각종 무기다.
24. 들개, 여우, 늑대, 염소는 ‘하는 짓’이 같은 들짐승들이다.
25. 동물보호법에는 들개나 야수들도 보호한다. 그러나 <환경과 기후의 변화>가 ‘들개와 야수들의 죽음의 덫’이 된다.
26. ‘들개’를 돈을 주고 사오느냐.
27. 어느 때는 <은혜>를 ‘물’로 보여 주시고, 어느 때는 <환난 풍파>를 ‘물’로 보여 주신다.
28. 어느 때는 <장애물>을 ‘물’로 보여 주시고, 어느 때는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 샘물’로 보여 주신다.
29. 성경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갈 때는 <은혜>가 말랐을 때였다. <은혜>가 마르면 먼저는 ‘육적인 고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와서 ‘영적인 고갈’이 온다.
30. 사람의 무기는 ‘말’이다. ‘글’이다. ‘마음’이다. ‘생각’이다. 이것을 가지고 목적인 바대로 잡는 것이다.
31. 전도도 ‘입’으로 ‘말’로 한다. ‘강한 증거의 입’이 생명을 놓치지 않는다.
32. (성자) <말>로 나와 사랑하자. <기도>로 나와 대화하며 사랑하자. 기도는 사랑이다.

<2014년 11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마음 그릇>도 <큰마음 그릇>도 ‘성자의 마음, 주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성자는 “됐다.” 하신다.
2. <마음 그릇>이 ‘성자의 생각’으로 꽉 채워져야 다음 차원의 단계로 올라가서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3. <마음 그릇>이 작으면, 큰일은 못 한다.
4. 작은 자라도 <마음 그릇>이 커야 큰일에 같이 참여한다.
5. ‘듣기에 옳은 말’만 해 준다고 해서 ‘온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이 듣기에 거짓되고 나쁜 말’을 안 하고 ‘좋고 옳은 말’만 가르쳐 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철학가라도, 종교가라도, 도덕가라도, 어떤 유명한 자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빛나간 자’다. 그 말로는 ‘메시아가 주는 구원’은 이루지 못한다.

6. 흔히 사람들은 “들어보니 ‘나쁜 말’이 아니야.” 하면서 믿어 주고, 그 말을 신임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 아무리 유익하고 좋을지라도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위한 삶에서 끝나고 마는 말’은 ‘육과 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데’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7. 아무리 ‘육신을 유익하게 하는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진리와 뜻에서 벗어난 말’은 세상적이라서 세상에서 끝나고 만다.
8. 삼위일체와 주와 상관이 있고, 삼위일체와 주가 인정하고, 구원과 휴거에 해당되는 말이어야 그 말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된다.
9. 지옥에 가 보면,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온 자들의 영도 많다. 그런데 왜 지옥에 갔을까?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았으면 그같이 살았겠느냐.
10. 만일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합당한 ‘지옥의 대가’를 받아도 마땅하지 않느냐.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그의 시종을 들며 그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하느냐.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12. 알면 알수록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더 시종드는 것이다.
13. 음부, 흑암, 무저갱, 지옥을 헤매며 사는 영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은 자들의 영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자들의 영들’이며,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의 영들’이다. -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악을 행하다가 죽은 자가 된 것이다.
14.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라. 그것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자기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 자기 영도 ‘선하고 의로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15.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만들지 말아라.
16.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킨다. ‘진리의 말씀과 영적 사랑’으로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킨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왜 해 달라고만 하느냐.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자기가 해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신부’다.
18.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받았으면,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자기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19.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가 해야지, ‘타인’이 자기 것도 아닌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겠느냐.
20. ‘아는 자’가 주인이다. 고로 ‘아는 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모르는 자’는 할 수가 없다.
21. ‘주인’만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잔치한다.
22.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사랑’을 받은 자만 주인이 되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산다.
23. 어느 시대든지 ‘만난 자, 받은 자’만이 아는 고로 ‘주인’이 되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산다.
24. ‘만난 자’가 ‘오신 자’를 맞아 기뻐하고 사랑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25. ‘받은 자’가 ‘준 자’에게 감사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26.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만 주인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보화는 ‘이 시대 역사’이며, ‘성자’이며, ‘주’다. 정말 발견한 자는 얼굴 표정과 행실부터 달라지고, 마음까지, 혼까지, 영까지 날마다 기뻐하며 잔치한다.

<2014년 12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와 일체 된 자>는 먼저 ‘성자의 것’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기 것’을 계산한다.

2. <육적인 자>는 ‘자기 것’만 계산하고 인식하니, 많이 틀린다.

3. 반드시 ‘성자의 것’을 넣고서 계산해라.

4. ‘성자의 양(量)’을 넣고서 계산해라.

5. ‘우측’으로 인식해 버리면, 누가 그쪽은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라고 해도 ‘우측’으로만 보인다.

6.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는데, 아예 인식하지 않고 있으니 ‘매달’ 감사했다고 인식했다. 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확인해 보니, ‘매일’ 감사한 것이었다. 왜 ‘매일’로 인식이 안 됐을까? 상식상 매일 감사할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7. 종교도, 성경도, 교리도 어렸을 때 어퍼하다고 인식해 버리고 크면, 컸을 때 바로 인식시켜 줘도 안 돌아온다. 이는 마치 허리가 구부러진 채 큰 나무를 바로 세워도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8. ‘자기 습관’대로 인식한다. ‘자기 수준’대로 인식한다.

9. 자기 인식대로 말씀을 들으니, 말씀을 가르칠 때는 먼저 ‘인식’을 바로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들어간다.

10. 형상과 모양보다는 ‘뜻’이다.

11. <뜻>은 ‘마음’이다.

12. 아무리 모양이 예뻐도 ‘마음’이 가야 사게 되고 ‘뜻’을 둔다.

13. 하나님은 겉모습인 ‘형상과 모양’보다는 ‘마음과 뜻’을 보신다. ‘마음’이 가야 ‘뜻’을 두고 역사하신다.

14. 하나님은 ‘뜻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15. ‘뜻’은 왔다가 그냥 가지 않는다. ‘전능자의 마음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16. 사람도 ‘마음’이 있어야 ‘뜻’을 두고 행한다.

17. ‘마음’이 있어야 ‘뜻’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기도 한다.

18. 항상 먼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기 뜻’도 이야기해라.

19. ‘하나님과 성자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해라. ‘자기 뜻’은 너무나도 모르는 뜻이다.

20. ‘뜻’이 있어야 구원도 한다.
21. ‘뜻 있는 곳’에 ‘말씀’을 준다.
22.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통해 펴시고 이루신다. 처음에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펴시고 이루셨다.
23.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그 영이 <사망>으로 가야 된다. 천사장 루시엘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슬렀다. 그러다 타락한 루시퍼가 되었다.
24.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 기도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생긴다.

<2014년 12월 2일 화요일 새벽잠언>

25. 불가능한 일도 여럿이 같이 하면 가능하다.
26. ‘한 그루의 나무’로는 <집>을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수백 그루의 나무’를 베다가 만들면 <집>이 된다.
27. <땅>도 ‘한 평’을 가지고서는 <집>을 못 짓는다. ‘열 평, 스무 평’ 정도가 있어야 <집>을 짓는다.
28. <인생>도 ‘자기 혼자’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하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니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하게 된다.
29. <월명동 자연성전>도 ‘돌 하나’를 가지고서는 건축할 수 없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돌과 바위’로 건축하니 가능했다.
30. <하나님의 섭리역사>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려면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
31. 불가능한 일도 크면 할 수 있다.
32. 어린아이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도 크면 가능하다.
33. 지금은 절대 안 돼도 크면 된다.
34. 어린 나무로는 절대 기둥을 못 만들지만, 나무가 크면 된다.
35. 안 컸을 때는 ‘찾던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크면 ‘찾던 것’과 ‘필요한 것’이 생기니 할 수 있다.
36. 여자가 어렸을 때는 절대 아기를 못 만든다. 그러나 크니 발육되고 만들어져 아기를 낳게 된다. 크면, 가능하다.
37. 사람도 크지 못하면 절대 <신>같이 될 수 없고, <휴거>되지 못하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
38. ‘ 컸다’라는 말은 ‘만들었다. 변화됐다.’라는 말이다.
39. 인간이 <절대 신>같이 완벽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절대 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따라서 ‘시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생각도 행실도 영도 점점 온전히 만들어지고 변화되어 ‘신’같이 크게 된다. 그리 함으로 <휴거>된다.

40. ‘컸다’라는 말은 ‘차원을 높였다’라는 말이다.

41. ‘컸다’라는 말은 ‘인간이 절대 행할 것’을 행하면 차원이 높아져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2. 차원이 낮을 때는 불가능해도 차원을 높이면 된다.

43. 크면, 다른 세계가 된다.

44. <모래>가 크면, 다른 세계인 ‘돌’이 된다. <돌>이 더 크면, 다른 세계인 ‘바위’가 된다. 모래에서 돌로 크고, 돌에서 바위로 크니까 ‘취급’도 달리 하고, ‘쓰이는 것’도 더 크게 달리 쓰이게 된다.

45. <손가락만 한 나무>도 한 아름만큼 크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작품 나무’가 된다.

46. <월명동>도 차원을 높여 크게 만드니, ‘다른 세계’가 되었다.

47. <인생>도 크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인생’이 된다. 그러니 자기를 키워라. 만들어라. 변화시켜라. 차원을 높여라.

48. <큰 바위>도 ‘작은 포클레인’으로 들면 못 들지만, ‘크레인’으로 들면 거뜰히 들 수 있다.

49. 작게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크게 생각하면 할 수 있다.

50. 작게 행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크게 행하면 할 수 있다.

51.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하시니, 영원히 불가능이 없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52. 크게 생각해라. 크게 행해라. 많이 행해라. 그리고 커라. 만들어라. 변화되어라. 차원을 높여라. 그러면 된다. 이상적으로 된다.

<2014년 12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53. 사람이 커서 자기를 만들고 변화시켜 놓으면, 예전 모습은 없어진다. 고로 변화되기 전에 보던 자들은 못 알아본다.

54. 자기를 키우고 만들고 변화시켜 다른 사람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기 전 상태’를 생각하고 의식하고 대하며 크게 볼 줄을 모른다.

55. 예수님도 ‘메시아’로 크고 변화되었는데도 사람들은 ‘형제’, 혹은 ‘한 마을 사람’으로만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 / 더러는 ‘적그리스도, 이단’으로 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악평하고 막고 죽이기까지 했다. / 이 시대도 그러하다.

56. 사람이 지능이 낮으면 ‘큰 것’도 작게 보고, ‘엄청난 것’도 별로로 본다.

57. 자기 수준대로 보고 대하니 <하나님의 새 역사>도 <시대 보낸 자>도 작게 보고 별로로 보는 것이다.

58. <시대 말씀>을 듣고 자기 수준과 지능의 차원을 높이고 다시 보아라. 그래야 ‘큰 것’이 크게 보이고, ‘엄청난 것’이 엄청나게 보인다.

59. 사람은 자기 체구대로 옷을 입듯이, 자기 지능대로, 자기 차원대로 살아야 만족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자기 지능과 자기 차원대로 그 단계에 처해 산다.

60.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자기를 키우고 만들고 변화시키고 차원을 높인 대로 그 영이 ‘자기를 만든 수준의 세계’에 가게 된다.
61. 사람이 ‘많이’ 수고해 놓고 ‘적게’ 얻고 살면, 늘 만족하지 못하고 천국이 될 수 없다.
62. ‘조금’ 행했는데 ‘많이’ 얻고 살면, 마치 큰 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맞지 않으니 역시 만족하지 못한다.
63. 사람은 생각하고, 수고하고, 행한 대로 얻고 산다. 고로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하고 많이 행해야 크게 많이 얻게 되어 만족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
64. 나무가 <거목>이 되면, ‘한 가지’가 ‘한 나무’만 하게 된다.
65. <대기업>이 되면, ‘한 부서’가 ‘작은 기업’만 하게 크다.
66. <큰 나라>를 보아라. ‘한 도시’가 ‘한 나라’만 하게 크다.
67. <천국>도 크니, ‘한 지역’이 ‘지구’만 하게 크다.
68. <인생>도 커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이루게 된다.
69. 내가 ‘신(神)’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기대에 어긋나서 실망하신다.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神)이 돼야 한다. 내가 신(神)이 돼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나를 신으로 신고 다니신다. 신(神)이 돼야 ‘신의 나라’에 갈 수 있다!
70. <신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상대체’가 돼야 갈 수 있다.
7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상대체’는 ‘신의 단계’다. 고로 ‘신’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72. ‘거목’이 아무리 좋아도 <왕의 방>에는 못 들어간다. ‘완전한 가구’로 만들어야 <왕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
73. <천국>도 그러하다. 어느 누구든지 ‘육’으로는 못 가고, 오직 ‘자기 영’을 ‘완전한 신’으로 키우고 변화시켜야 갈 수 있다.
74. ‘거목’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은 <왕의 의자>가 될 수 없다. ‘의자’로 만들어야 <왕의 의자>가 된다.
75. <사람>도 그러하다. 그냥은 천국에 못 간다. 그냥은 세상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76.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닫고, 성삼위를 사랑하며 그 뜻을 세상에서 행하여, 자기 영을 ‘신’으로 변화시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돼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 이렇게 해야 <천국>에 가게 창조해 놓았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신’같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시며 극히 도와주신다.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77. 사람은 ‘뇌’에서 잊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난다.
78.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뇌’에서 잊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난다.
79. ‘뇌’에서 잊어버리면, 무섭게 싹 다 잊어버린다. 고로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며 생각나게 해라. 또한

아는 자가 자꾸 말해 주고 가르쳐 주어라.

80. '뇌'에서 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생각나지 않고, 말씀도 기억나지 않는다.

81. 자꾸 생각해라. 아는 자가 자꾸 말해 줘라.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듯이, 잊었던 것들이 다시 생각난다.

8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로 깨우쳐 주기 좋으니, <만물>을 '글'로 사용하며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 혹은 <사람>을 통해 말해 주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혹은 <마음에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해 주신다. 혹은 <말씀>을 주어 깨닫게 하신다.

83. 사람이 <한 가지 방법>으로는 못 다스리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시기에 '순리'로 다스리신다.

84. <한 가지 방법>으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다스린다.

85. <한두 가지 방법>으로 다스리면 자유롭지도 못하고, 순리로 다스리지도 못한다. 때마다 합당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스려라.

86. 그때 처한 것이 '문제'다. '문제'를 보고 '답'을 줘야 된다.

87. '문제'를 안 보고 '답'을 주면, 그것은 '답'이 되지 못한다.

88. 저마다 처한 처지에 따라서 '해 줄 말'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른 것이다.

89. <해결 방법>은 성자와 함께 찾아야 된다. 그래야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90.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았다.

91. <이성 사랑, 하체 사랑>은 크지 않다. 이는 마치 '수석 같은 사랑'에 불과하다.

92. 상 차원에 있는 <뇌 사랑, 영적 사랑, 영원한 사랑>은 마치 '월명동의 바위들과 산들이 모여서 하나님 백보좌 형상이 된 것과 같은 사랑'이다.

93. <영적 사랑>이라야 '천국'까지 가게 된다.

94. <육적 사랑>은 지구 세상의 70억 명이 다 해도 '땅을 먼치 못하는 하차원적 사랑'이다. 이 사랑은 '육'과 같이 사라진다.

95. 사랑으로 휴거된다.

96. <빛같이 빨리 휴거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배워서 알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알고, 절대 사랑으로 일체 되어 신같이 행하면 빨리 휴거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랑'으로 접붙여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면서 성장하면, 빨리 휴거된다. <육의 세계>의 '육'은 마치 어린나무가 오랜 시간을 두고 크듯이 하지만, <영의 세계>의 '영'은 행하는 만큼 빨리 변화된다.

97. <육의 세계>이 '육'과 <영의 세계>의 '영'은 다르다.

98. 잠언도 '육적 차원'에서 쓰면 하루 종일, 혹은 한 달이 걸린다.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 쓰면 순간 100개의 잠언도

쓰게 되고, ‘육적 차원’에서 쓴 잠언과는 비교가 안 되게 차원이 높다.

99. 시간으로 볼 때나, 자격으로 볼 때나 ‘휴거에 불가능한 자들’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분체를 절대 믿고 사랑하면, 빨리 휴거된다. ‘사랑의 강도, 생각, 행위’에 따라서 좌우된다.

100. 삼위일체와 일체 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생각도 행실도 영도 바로 변화되고, 신과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된다.

101.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102. ‘땅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103. 새벽에 기도할 시간에 못 일어났다. 그때 한 장면이 보였다. 내 앞에는 차가 달려가고 있었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좁은 길이었는데, 이리저리 장애물까지 있어서 자꾸 걸렸다. 이리저리 피해서 섰다가 다시 가고, 섰다가 다시 갔다. 잠에서 깨 보니, 일어날 시간이 30분이나 남은 상태였다. 제 시간에 갈 길을 안 가면 그러하다는 것을 ‘영계의 현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제 시간에 갈 길을 가면 차를 타고 가고, 늦으면 자전거 길로 바뀌어 자전거를 타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가야 된다 함이었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땅의 입장’만 생각하면 ‘영계’를 이해하지 못한다.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죽으면 끝나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 청산해야 끝난다.

2. 육신이 죽으면 ‘육에 해당되는 것’은 끝나지만, ‘자기 혼과 영에게 연관된 것’은 끝나지 않는다.

3. 가령 육신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청산하지 않고 죽었다 하자. ‘육신’은 죽어서 끝났지만, ‘그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청산할 때까지 죄로 인한 대가가 끝나지 않는다.

4. ‘육신’에게도 병이 있듯이 ‘혼과 영’에게도 병이 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아픈 혼과 영들이 그리도 많다.

5. <영의 세계>에는 ‘살덩이 육체’만 없지, ‘육의 세계에서 자기 육신이 살았던 삶’을 ‘혼과 영’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고 있다.

6. 육신이 살아 있을 때 죄를 100% 청산하고 온전히 산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면, 죄가 100% 청산되어 <온전한 천국>에서 살고 있다.

7.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살던 대로 ‘자기 영’이 <영의 세계>에 가서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살게 된다. 고로 ‘자기 마음과 행위의 죄’를 100% 청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영’이 ‘자기 육의 삶’을 반복하면서 <영계>에서 살아간다.

8. <영계>에서 보니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기의 그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었다.

9. <육계>에서도 자기 스스로 의롭게 살지만,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삶’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10. <구원>은 구원자를 절대 믿고, 구원자와 하나 되고, 자기 죄를 알고 구원자 앞에 회개하여 청산하고, 그 위에 의롭게 행함으로 자기 의를 더해야 받게 된다.

11. 축소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여자’로 말한다면, <구세주>는 ‘한 남자’다. 여자가 남자와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랑을 이룰 수 없다. 혼자서 스스로는 사랑을 이룰 수 없다. 이와 같이 <구원>도 혼자서 스스로는 못 이룬다.

12. 남자가 아니고서는 <사랑의 구원>을 이뤄 줄 수 없듯이, 영계를 보나 육계를 보나 <구세주>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없다.
13. 자기 스스로 더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구원>이다. <구원>은 ‘구세주’ 없이는 절대 이루지 못한다.
14. <주를 버리고 간 자들의 영>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 버렸기에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구원의 세계’로 올 수가 없다. <구원자>가 자신의 특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이끌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15. 구원자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절대 안 된다.
16. <성약시대 구원>은 ‘시대 구원자’가 ‘구원의 문’이라서 그를 믿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그와 일체 돼야만 이룬다.
17. 영계나 육계나 ‘뇌신경’같이 ‘길’이 많고 복잡하다. ‘세상의 것’을 다 배우고 살려면, 배울 날도 모자라고 다 배우지도 못한다. <육계의 것>이나 <영계의 것>이나 ‘자기 갈 길에 해당되는 것’만 배우고 행해라.
18. 현실에서 다 배우고 행하려면, ‘행할 시간’이 없다. 때가 지나가면 못 하니, ‘현실에 해당되는 핵심’만 배우고 속히 행하여라.
19. 현실에 성자가 원하시는 것은 <휴거>다. 어서< 휴거>에 대해 배우고 행하여라.
20. 육신도 살아야 하니, ‘육이 현실에서 할 일’도 배우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
21. 유수같이 흘러가는 삶이다. 물이 흘러가듯, <인생>도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반복 없는 삶이다.
22. <인생>은 100년을 두고 시계의 시침, 분침, 초침같이 가는 삶이다.
23.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불신하고 나간 자들’이 <육계>에서 ‘기성의 신앙’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됐는지 기도했다. 성자께서 ‘그 영들’을 <영계>에서 만나게 해 주셔서 보았다. 사망권의 어둠의 세계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늙어 있었다. <육계>에서 알던 사이라서 그들이 순간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러다 나와 같이 있지 못하고, 자기 주관권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구원자’가 아니고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실감 나게 깨닫게 해주셨다. 성자께 물으니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보낸 자>를 불신하면 그 어디를 가도 ‘불신의 영’이 되어 살고, 그 육신도 근본 된 토지를 갈면서 그곳에 처해 살 수밖에 없다.” 하셨다.

<2014년 12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오직 <목적>을 향해 가야 <목적>이 달성된다.
2. 성자와 주와 같이 해야 <목적>이 달성된다.
3. 삶은 ‘상단 중단 하단’이다.
4. 성자와 주와 같이 하면 ‘상단’이고, 일부만 같이 하면 ‘중단’이고, 혼자서 하면 ‘하단’이다.
5. <육>으로는 여건이 안 되어 못 한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혼>으로 <영>으로 기도하면서 해라.
6. <육>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못 하면, <마음>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혼과 영>으로 해라. 항상 ‘육’을 가지

고 '생각'해라. 그래야 '그 생각'을 따라서 '혼과 영'도 더 행하게 된다.

7. 한 생명을 만나서 성자의 말씀을 전해 줘야 하는데 <내 육>이 묶여 있어서 못 하니, 기도하며 <생각>으로 행했다. 그랬더니 <내 혼과 영>이 '육이 묶이지 않은 자'에게 가서 그를 통해 행했다. 그는 천릿길을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 주었고, 그 일은 성공했다.

8. <육>은 묶어 놓아도 <마음, 정신, 생각, 혼, 영>은 묶어 놓지 못한다.

9. <육>도 묶어 놓고, <마음, 정신, 생각, 혼, 영>까지 묶어 놓을 존재자는 '오직 삼위일체'뿐이다.

10. 어떠한 여건으로 인해서 <육신>이 묶였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행해라.

11. 육도, 혼도, 영도 자유로운데 자기가 행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자기를 묶어 놓고 산다.

12. 자기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묶는 자다.

13.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는 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난다. 그러나 후에는 표가 난다. '부지런한 자'는 날고 '게으른 자'는 기니 표가 나고, '부지런한 자'는 얻고 '게으른 자'는 못 얻으니 표가 나고, '부지런한 자'는 잔치하고 '게으른 자'는 헐벗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슬피 울며 고통 받으니 표가 나고, '부지런한 자'는 천국에 가고 '게으른 자'는 지옥에 가니 표가 난다.

14.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처음에는 표가 안 난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표가 난다. '아는 자'는 얻고 '모르는 자'는 못 얻으니 표가 나고, '아는 자'는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모르는 자'는 고생하고 불쌍하고 불행하니 너무 표가 난다.♥

15.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처음에는 표가 안 난다. 그러나 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표가 난다. 극과 극인 <행복의 길>과 <고통의 길>로 갈려 가니 너무 표가 난다.

16. '할 일을 하는 자'와 '안 하는 자'는 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난다. 그러나 가다 보면 <행복>과 <고통>으로 갈려 가니 표가 난다.

17.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못한 자'는 처음에는 별 표가 안 난다. 그러나 후에는 <황금성>과 <일반 구원의 성>으로 갈려 가니 너무 확 표가 난다.

18. '선평자와 악평자', '진리를 말하는 자와 비진리를 말하는 자'는 그냥 보면 표가 안 난다. 그러나 그 영이 생명길과 사망길로 갈려 가니 표가 난다. 그 육도 자기 영과 같은 주관권에서 살고 있다.

19.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겉으로 보면 표가 안 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로 갈려 가니 표가 난다.

20. '메시아'와 '구원받을 자'도 그냥 보면 '같은 사람'으로 보이니 표가 안 난다. 그러나 말할 때와 행할 때를 보면 '호랑이'와 '고양이'같이 확 표가 난다.

<2014년 12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에게 보화다.

2. 황금, 돈, 다이아몬드, 보석만이 보화가 아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 소원하는 것이 '자기에게 보화'다.

3. '보화의 개념'을 알아야 삼위일체가 사랑할여 주신 보화를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쓴다.
4. 자기가 그때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다.
5.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보화'이며 '복'이다.
6.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받으면 '화'다.
7. <환경>도 보화이고, <자기 나라>도 보화이고, <자기 집>도 보화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성전>도 보화다.
8.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는다.
9. <보화>는 자기 정성을 다해 수고하고, 진실로 책임을 다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최선을 다한 자가 얻게 된다.
10. 자기 집 앞에 있는 땅이 <문전옥답>으로 '보화의 땅'이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솔이 <황금 솔>로 '보화의 솔'이다.
- 이와 같이 <자기 교회>는 남들이 별로라고 해도 '자기에게 보화'다.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가 주셨기 때문이다. 때를 따라 하늘의 운을 타서 얻은 곳이기 때문이다.
11. <보화의 주인>은 누가 그 보화가 별것 아니라고 하며 나쁘다고 해도 절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매일 성삼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사랑에 불타서 기쁨으로 잔치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맛'이 나도록, <보화>를 얻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잔치하며 귀히 써라.
13. <생명>이 보화다.
14. 하나님 품으로 온 자들이 '세상에 묻힌 가장 큰 생명의 보화'다.
15. 전도자는 전도했기에 누구보다도 '그 생명'을 보화로 본다. 고로 다른 사람은 귀하게 안 봐도 전도자는 귀히 보며 주와 함께 기쁨으로 잔치한다.
16. 아는 자, 수고한 자, 행한 자는 더욱 '보화'로 본다.
17.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고로 '누구에게나 다 보화'가 아니다. '개성대로 자기에게 보화'다.
18. <똑같은 것>라도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리고, 어떤 사람은 '보화'로 여기고 가져간다.
19. 개성대로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인생의 보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이 <인생의 큰 보화>다. 이를 진정 깨달아라. 그러면 누가 귀히 여기지 않고 악평을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잔치하며 산다.

<2014년 12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육, 마음, 생각, 혼, 영>이 '자기에게 보화'다. 보화라도 써야 빛이 난다.
2. <기도, 말씀, 성자의 계시>가 보화다.

3. <자기 특기와 재능>이 보화다.
4. <적기에 얻는 것>이 보화다.
5. <새벽 시간>은 귀한 보화다.
6. <건강>이 보화다. 건강할 때 더 관리하여 건강을 뺏기지 말아라.
7. <지혜>가 보화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
8. <생활 속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보화다.
9. <휴거의 시대>가 보화다. 지금 이때는 지구가 생긴 이래, 성삼위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때로서 '황금 보화 기간'이다.
10. <휴거의 시대를 만나 이때를 알고 사는 것>이 보화다. 이 보화를 귀히 여기고 어서 부지런히 행해라.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보화>는 때가 돼야 얻고, 주셔야 얻는다.
12. 2014년은 '역사의 때'를 따라서 <성자가 떠나시는 해>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
13.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때'를 만들고 '때'를 따라 지구를 운행하신다.
14. 때가 되면, 어김없이 '해'도 넘어간다.
15. 때가 되면, 어김없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
16. 삼위일체는 '때의 주인'이라서 운전수가 '때'를 따라 차를 몰고 오듯 하시고, '때'를 따라 차를 몰고 가듯 하신다.
17. 성자가 떠나시면, <휴거 문제>로는 다시는 지구에 안 오신다. 특별한 때에 영광 받으실 때만 순간 왔다 가신다.
18.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특히 '밭에 묻힌 보화'를 주고 가신다.
19. 1978년에 섭리역사를 시작하고 36년 만에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성전을 우리 것으로 얻는 꿈>이 이루어졌다. '밭에 감춰진 보화'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보화'다. '본체의 조건과 사명의 운으로 얻은 보화'다. '우리에게 필요한 보화'다. 보화를 얻었으니, 누가 별로라고 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날마다 변함없이 성삼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잔치하여라. 처음부터 끝까지 귀히 여겨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라.
20. <삼위가 주신 성전>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보화'로 안 본다. '주와 같이 얻은 자'만 주인으로서 귀히 여기고 귀히 쓴다.
21.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22. <성전>을 '보화'로 얻은 교회들은 '그 안에 묻힌 보화'들을 더 캐내어 100배 더 유익을 남겨라. 곧 전도하여 '생명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고 더 차원을 높여 행하여 '각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다.
23. <자연성전>을 '하나님의 백보좌'로 보고 귀히 써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대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 마음에 좌정하시며 귀히 쓰신다.

24. 보화를 관리해라. ‘쓰는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것이다.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관리해 주는 것이다.

25. <자기 마음, 생각, 행실>을 깨끗하게 귀히 써라. 그래야 ‘진정한 보화’가 되어 육 평생, 영 영원히 사랑받으며 귀히 대접 받는다.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보화라도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보화’가 아니다.

2. 쓰는 만큼 ‘가치 있고 빛이 나는 보화’가 된다.

3. 얻은 보화를 잘 써야 100배나 더 빛나게 된다.

4.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최선을 다해서 사야 된다.

5. <육적인 보화>도 <천국 황금성>도 자기 소유를 다 투자하고 최선을 다한 자만 ‘자기 것’으로 얻는다.

6.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돈이 아깝다.” 하면서 비웃는다.

7. 계산을 잘해라.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보화 값’은 안 치고 ‘땅 값’만 주고 산 것이다. 그러니 엄청난 유익이다.

8. 영적 보화인 <구원과 휴거>도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최선’을 다해서 사야 된다.

9. <휴거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휴거를 위해 투자해 놓고도 후회한다.

10. 자기가 <휴거>를 위해 투자한 것은 ‘보화 값’이 아니라 ‘보화가 묻힌 땅 값’에 불과하다. ‘땅 값’만 지불해도 ‘그 속에 묻힌 보화’를 얻게 된다.

11. 휴거를 위해 투자해라. 그로 인해 ‘영원한 보화인 <휴거>’를 얻게 된다.

12. <천국 황금성의 값>은 ‘지구 한 덩이 값’보다 더 크다. 그것도 ‘영이 영원히 누리는 값’이다. <천국 황금성>의 땅 값, 집값까지 다 따지면 자기가 투자한 것의 수천억 배를 얻는 것이다.

13. <밭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 <밭>을 사 놓고, 후회하면 안 된다.

14. <하나님이 주신 보화>는 겨우 ‘보화가 묻힌 땅 값’만 계산한 격이다. 고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평생 영원히 유익이다.

15.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보화’를 얻듯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야 ‘휴거의 보화’인 <황금성>을 얻는다.

16. <휴거>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주인이 되어 휴거된다.

17. 가치를 모르는 자는 ‘보화가 묻힌 밭’을 발견해도 ‘보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땅 값’이 비싸다고 안 산다.

18. <좋은 땅>은 시간이 갈수록 ‘값’이 오른다. <신앙의 값>도 시대가 갈수록 ‘값’이 오른다.

19. <휴거>는 ‘자기 휴거’이지 ‘남 휴거’가 아니다. 고로 <휴거>는 ‘자기에게 보화’다. 그러니 ‘자기’가 기도하고, 수고

하고, 말씀을 행하고, 성자를 사랑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가 휴거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다.

20. 자기 수고로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자기 수고로 ‘휴거의 보화’를 얻는 것이다.

21. ‘자기에게 보화’이니, <그 보화>는 자기가 귀히 여기고, 자기가 귀히 쓰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된다.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는 <금>같이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은>같이 생각한다.

2.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이니 <금>같이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아니니 <은>같이 보는 것이다.

3. 만사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보화’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보화’가 아닌 것들이 많다.

4. <서울의 고급 아파트>도 ‘멀리 사는 자들’에게나, ‘취향이 아닌 자들’에게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보화>가 아니다.

5. <똑같은 땅>이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사지만,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거저 줘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자기가 원하던 것이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냐에 따라서 ‘보화’가 결정된다.

6. <자기>는 “귀한 것을 얻었다!” 하고 기뻐하며 잔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저게 뭐가 귀하냐?” 하며 비웃는다. ‘자기에게 보화’이기 때문이다.

7.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 보화’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자기에게 보화’다. 그것을 얻는 것이 ‘축복’이다.

8. <말씀>도 자기에게 필요해야 ‘보화’다. <성자와 분체>도 자기에게 필요해야 ‘보화’다. 고로 배워야 된다. 배우고 알아야 된다.

9. <성자와 분체>를 제대로 안 자는 ‘보화’로 보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고, 절대 버리지 않고 귀히 여기며 뺏기지 않는다.

10. 저마다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 자기 삶에 해당되는 것>이 보화다.

11. <자기 생활 터전>에서 가까워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니, <자기 생활 터전에서 가까운 것>을 ‘보화’로 보고, 그것을 얻으려 한다.

1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가까이 있는 자들>을 ‘뜻 있는 자들’로 보시고 ‘보화’로 보시고, 그들을 얻으려 하신다.

13. <자기 생활 터전>에 있는 곳이 자기 집이고, 자기 정원이고, 자기 방이다. <자기 생활 터전>이 아닌 곳은 가끔씩 가보는 하나의 관광지, 피서지에 불과하다.

14. <성자와 분체>와도 멀면, 가끔씩 가보는 ‘관광지, 피서지에 불과한 인생’이 된다.

15. <성자와 분체>와 가까워야 성자는 그 사람을 ‘성자의 집, 정원, 방’으로 귀히 보고 가까이 대하신다.

16. 자기 개성대로, 자기 재능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수준대로 ‘보화’로 여기고 좋아한다.

17. 고급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아파트’가 보화다. 개인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개인 주택’이 보화다.
18. 돌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돌’이 보화다. 흙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흙’이 보화다.
19. 사랑하는 자를 택할 때도 자기 개성과 취향과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다른 사람은 별로라고 해도 ‘자기에게 사랑의 보화’다.
20.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지능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가 깨닫는 대로 ‘보화’가 결정된다. 그래서 <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은 ‘보화’로 여기고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쓰레기’로 여기고 버린다.
21. <하나님>은 ‘영원한 보화’다. <성자>는 ‘구원의 보화’다. <구원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중보의 보화’다. 그러나 ‘아는 자에게만 보화’다.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오늘 잠언은 ‘산’을 타 보고, ‘산’을 통해 기를 받아 보고, ‘산’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큰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산’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는 것을 느껴 본 사람이 더욱 감동받고 은혜 받고 깨닫는 잠언입니다.

1. 발로 걸어 다니고 손으로 만지면서 쓰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쓰는 것이 있다.
2. <산>은 ‘발’로 밟고 다니기도 하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 구경도 하면서 쓴다.
3. <산>을 통해 ‘맑은 공기’를 제공받고, ‘건강’을 제공받고,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니 ‘운동기구’도 되어 준다.
4. <산>은 정원이다. 공원이다. 응접실이다. 야외에 있는 방이기도 하다.
5. <산>은 창조주 하나님의 큰 작품 중의 하나다. <산>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얼마나 큰일을 하는지 깨닫고,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지 깨달아라.
6. <산>은 너무 커서 ‘그 형상의 기묘함과 신비함’을 다 모르고 쓰고 있다.
7. <산>에 주름진 계곡의 물, 나무, 바위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산 미인’이며 ‘아름다운 작품’이다.
8. ‘말 타기’보다 더 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산 능선 타기’다.
9. <산 능선>을 따라서 ‘기’가 흐르고, <물>을 따라서 ‘생명력’이 흐른다.
10. 산맥, 물맥, 인맥이다.
11. <맥>이 있어야 ‘그 존재물의 힘’을 받는다.
12. <산맥>을 끊으면 ‘기’가 끊기고, <물맥>을 끊으면 ‘물’이 끊기고, <인맥>을 끊으면 ‘사람’이 끊긴다.
13. <큰 산맥>에서는 ‘큰 인물’이 태어나고, <큰 물맥>에서는 ‘큰 물’이 흐르고, <큰 인맥>에서는 ‘큰 자’와 연결된다.
14. 여러 가지 지형이 두루두루 다 갖춰진 곳이 <황금 지역>이다.
15.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다. <산>과 <지역>을 창조하실 때 ‘더 좋은 자리’를 창조하시고, ‘보다 못 한 자리’를 창조하셨다. 인간이 행한 대로 ‘그에 맞는 환경’을 주신다.

16. <높은 산>이 솟아나게 창조했으니, 그다음에는 <깊은 계곡>이 지게 창조하셨다. 이같이 창조해야 조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17. <사람의 몸>도 ‘각 지체’를 개성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지구 세상의 산들과 각 지역의 지형>도 개성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산>이 그리도 큰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다.

19.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크게 창조하시고, 나머지 남는 땅들은 작으니 아기자기하게 작게 만드셨다. 그곳에 해당되는 대로 크게, 혹은 작게 만드셨다.

20. <사람의 지체>를 보면 낮고, 높고, 길고, 짧고, 두껍고, 얇고 조화롭게 만들어졌다.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할 때도, 평소에도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것을 분명히 생각하지 않으면, 잡생각이 들어와 마음이 흐트러진다.

2.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1시간 동안 기도한 것이 집중하고 10분 동안 기도한 것보다 못 하다.

3.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면, 다른 영들에게 마음을 잡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주관을 받게 된다.

4. 자기 마음을 딱 잡고 깊이 기도해야 성령으로 감동되고, 의의 주관을 강하게 받게 된다.

5.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면, 온전한 자와 일체 되어라.

6. 인생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마음과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

7. 절대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행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8. ‘자기에게 보화’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화가 아닐 수 있다. 고로 다른 사람은 그 보화를 비난하고 귀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보화가 아닐 뿐이지, 자기에게는 보화다. 고로 흔들리지 말아라.

9. <자기 보화>는 ‘자기’가 챙겨야 된다.

10. <자기 신발과 옷>은 자기 몸에 맞으니, ‘자기 것’이며 ‘자기 보화’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몸에 안 맞으면, 보화가 아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것을 좋아하나? 정말 물건 볼 줄 모르네.” 해도 소경으로 취급하고 네 주관을 굽히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말하는 것이다.

11. 개성대로 보화다. 특기대로 보화다. 차원대로 보화다. 아는 대로 보화다. 필요한 대로 보화다.

12. 어떤 사람에게는 ‘곰’이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소’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돼지’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타’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린’이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코끼리’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슴’이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쥐’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우’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뱀’이 보화다. -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보화다.

13. 어떤 사람에게는 ‘돌’이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무’가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흙’이 보화다. -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보화다.

14. <한 주권관>에서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살아라. 그리고 차원을 높여서 ‘경쟁자와 다투는 자들이 없는 곳’에서 살아라.

15. 끼리끼리 다툰다. 수준이 같으면, 자꾸 경쟁하고 다툰다.

16. 자기가 수준을 높이고 차원을 높이면, ‘경쟁자’도 ‘다투는 자’도 없는 곳에 가서 살게 된다.

17. 신앙의 세계에서도 서로 수준이 같으면 자꾸 ‘사명’을 가지고 다툰다. 차원을 높여 행해라. 비어 있는 곳에 가서 뛰고 달려라.

18. 차원을 높여 <성자와 주가 있는 주권관>으로 가라. 거기서 마음껏 성자와 주를 사랑하며 자기를 더욱 완전하고 빛나게 만들어라.

19. <사람>도 몸이 달아야 느끼듯이, <환경>도 가까워야 느낀다. <성자>도 <분체>도 가까워야 느낀다.

20. 산이나, 물이나, 나무나, 돌이나 가까워야 ‘황금 취급’을 받는다.

21. <성자>도 <분체>도 가까이 대해야 ‘황금 역사’가 일어난다.

22. 성자와 분체에게 가까이하기 도전이다!

23. 차원 높여 살기 도전이다!

24. 논밭에 묻혀서 걸린다고 천대받던 바위도, 관심 밖에 있던 소나무도 <하나님의 자연성전>에 갖다 놓으니 ‘황금 바위, 황금 솔’ 대접을 받게 되었다. 인생도 그러하다. <하나님 주권관 밖>에 있을 때는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하늘 주인을 만나 <신부 주권관>에 오니 ‘황금 인생’ 대접을 받게 되었다.

25. ‘황금 인생’이 되었으니 자기 인생을 그냥 두지 말고, 나무를 퇴비하여 키우듯 어서 완전해질 때까지 자기를 키워라.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 도전이다!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법>이다.

2. 자기가 원하면 행하여 만들고, 원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다.

3. 안 하는데도 되면,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 실망이다.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안 하는데도 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되니 무섭다.

5. 하면 되니, 자기가 행하는 만큼 기쁨이 오고 보람이 온다.

6. 하나님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니, 꼭 행하신다.

7. 만일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도 된다 하자. 그러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공의의 법>이 무너지는다.

8. 하나님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공의의 법>으로 정하셨다.

9.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쁨과 이상의 세계’를 주셨다. 곧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삶’을 주셨다.

10. 운전수가 운전하면 차가 가게 되고, 운전을 안 하면 차가 안 간다. 이와 같이 행하면 생각한 것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만일 운전을 안 하고 차를 세워놨는데 차가 알아서 가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되니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게 된다. 또 운전을 안 하는데도 차가 가니 무섭다.

11.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안 하는데도 된다면, 무서운 세계가 된다.

12. 하나님은 마음먹은 대로 ‘지구’를 운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아라.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을 보아라.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다.

13.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려면, ‘만물’을 보아라.

14. 삼위의 마음을 보려면 ‘지구와 만물과 계절과 해와 달과 별’을 보아라. 그리고 ‘삼위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 삼위의 마음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려면, ‘구원자’를 보고, ‘시대 하늘의 사명을 받고 일하는 자들’을 보아라.

15. 사람의 마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아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면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을 보려면, ‘자기 자신’을 보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자기’를 통해 그 마음을 나타내 달라고 하고 보아라.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7.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 큰 축복 두 가지’를 두고 창조하셨다. 첫째 하면 되는 것, 둘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게 인간과 만물을 조화롭게 이치에 맞게 창조하셨다.

18. ‘자기가 원하는 것’이어서 하는데도 안 되면, 희망을 이루지 못하니 존재를 못 하게 된다.

19.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어서 안 하는데도 되면, 문제가 생겨서 존재를 못 하게 된다.

20. <차>를 운전하면 가게 만들고 안 하면 안 가게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게 창조하시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얻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셨다.

21. 자기가 못 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든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꼭 해야만 되게 창조하셨다.

22. <지구>도, <태양>도, <달>도 다 창조자께서 운행하시니, 움직여야 할 것들은 움직이게 하였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들은 가만히 있게 창조하셨다. 고로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23. 가만히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태양>은 창조자께서 가만히 있게 창조하시고 “가만히 있어라.” 명하시어, 가만히 있는 것이다. / <사람>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하시어, 한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24.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해서 가만히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25.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 하나님과 성자가 다음을 위해서 잠시 쉬게 하실 때가 있다. 고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두고, 다 하나님이 그에게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죄 때문에 가만히 있는지, 탕감 형벌 기간이여

서 가만히 있는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지, 하나님이 쓰지 않으셔서 가만히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만히 있는지 분별해야 된다.

26.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성자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쓰실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과 성자가 쓰시는데도 가만히 있게 된다. / 흐르는 물만 주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을 가둬서 쓸 때도 있는 것이다.

27.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자기’를 통해 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심’을 모르니까 모르고 행한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구하고 대화하면, ‘자기를 통해 행하심’을 깨닫고 알게 된다. 고로 깊이 기도해라.

29. 지금도 성자가 ‘나를 통해’ 행하시어 내게 계시를 주시며 말씀을 쓰게 하신다. - (이 잠언을 쓰니, 성자가 말씀하셨다. “맞다! 바로 그것이다! 네가 깨달으니, 안 것이다.”)

30.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행한다고 생각한다. 모르면 알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행한다. ‘자기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자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게 생각된다.

31. (성자) 깨달아야 확실히 안다. <나 성자>가 주인이 되어 ‘너’를 통해 행하고, 또 ‘네’가 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나’도 행한다.

32. (성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함을 아느냐. 지금까지 안 했으니 안 됐다. 지금은 행하니, 되지 않았느냐.

33. (성자) 행할 때는 먼저 ‘분별’해야 한다.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분명히 분별하고 알고 행하기다.

34. (성자) 운전하고 가야 되는지, 운전을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것 먼저다.

35. (성자) 내게 물어라. ‘묻는 것’만 우선권으로 대답해 준다. ‘묻지 않는 것’은 우선권으로 대답해 주지 않고, 다만 나 성자가 원할 때만 감동을 주어 행하게 한다.

36. (성자) 나 성자가 ‘너를 통해 행함’을 깨닫고 행해야, 확실히 뜨겁게 행한다.

37. (성자) 땅에서 ‘한 명’이 나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면, 그 한 명에 해당되는 만큼만 <천국>이 이루어진다. ‘가정 단위, 민족 단위’로 크게 행해야 그만큼 <천국>이 이루어져서 표가 난다.

38. (성자) 네가 작게 행하면, 하나님과 나 성자가 크게 행해도 모른다.

39. (성자) 네가 행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 성자도 ‘반응’을 보인다. 네가 내게 말하고 대화해야 나도 ‘반응’을 보인다.

<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2. 자기가 원하지 않아서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게 된다. 자기가 원하여 <불의>를 행하면 죄를 짓게 된다.

3. 선악 간에 자기가 행하여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4. 그러나 구원자는 <의>를 행해도 그 시대의 무지한 자들로 인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고통을 받는다. 그들 대신 ‘죄의 대가’를 받고 그들을 구원한다.

5. 사람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방 안의 쓰레기 하나도 치우면 바로 없어지고, 안 치우면 치울 때까지 그대로 있다. 만사의 모든 것이 하면 하는 만큼 되고, 안 하면 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
6. 행하되, 먼저는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분별하고 행해라. 그리고 기도하여 ‘더 좋게 해야 될 것’을 깨닫고 꼭 그것을 행해라.
7. 하는 만큼 잘되고, 안 하는 만큼 안 되는 것이 <삶의 순리>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다.
8. <자기가 어렸을 때 할 일>을 안 했기에 컸어도 ‘마음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자기 갈 길’을 막는 것이다.
9. <작년에 할 일>을 안 했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10. <자기 때에 할 일>을 안 했기에 ‘자기 갈 길’이 막힌 것이다.
11. <자기가 하지 않은 일들>이 ‘자기 갈 길’을 막고 있으니,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2. 자기가 잠을 자야 존재하고, 자기가 먹어야 존재한다. 이와 같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존재한다. 혼자서 못 하겠으면, 친구나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꼭 해야 된다.
13. 하면 된다. 행하는 만큼 잘된다. 이 법을 잊지 말아라.
14. 행하되, 알고 행해야 확실하게 뜨겁게 행한다.
15. 모르면, 몰라서 못 행한다. 알면, 아니까 행한다. 그러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만다.
16. 행한 대로 받으니, 알고 행해라.
17. <바람>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의 ‘공기’에 불과하다. 불어야 <바람>이다. 세차게 위력 있게 불면 <태풍>이 된다.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숨만 쉬는 인생’에 불과하다. 때를 놓치지 않고 뛰고 달리며 ‘할 일’을 해야 ‘살아 있는 자’이며 ‘위력 있는 자’이며, ‘자기 권세를 나타내는 능력자’다.
18. <바람>은 ‘저기압 공기’와 ‘고기압 공기’가 만나서 불기 시작한다. <인간>은 ‘저기압 공기’와 같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고기압 공기’와 같다. 고로 인간도 행하고 삼위일체도 행하면, <태풍>이 일어나듯 ‘돌풍 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19. 하나님과 성자는 알고 행하는 자를 ‘그 센터의 개척자, 주인, 사명자’로 쓰시며,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신다.
20. 성자는 누구든지 먼저 알고 행하는 자를 쓰신다.
21. (성자) 아는 자가 사명자다. 그러니 아는 네가 하여라.
22. 모르는 자들은 항상 알고 행하는 자를 막는다. 그러나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절대 행한다. 그리함으로 다른 차원에 올라서 기필코 <역사>를 이루고 만다.
23. (성자) 행해야 해결된다. 행해야 잘된다. 행해야 얻는다.

24. (성자) 행해야 천국이 실현된다.

25. (성자) 잘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26. (성자) 실천 신앙, 실천 인생이다.

27. (성자) 늦었어도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28. <진리>가 보화다. '진리 하나'가 자기 운명을 좌우한다.

29. <깨달음>이 보화다. '깨달음'이 자기 운명을 좌우한다.

30. 진리가 보화이니, 성자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해라. 그 말씀을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고생하지 않고 잘된다. 희망의 천국의 삶이 매일 일어난다. 매일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유익한 것>은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유익'이다.

2. <횡재하여 얻은 것>은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유익'이다.

3. <악한 자>는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악한 자'다.

4. <손해가 간 것>은 이리 따지나, 저리 따지나 '손해'다.

5. 성자가 주신 <밭에 감춰진 보화>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보화'이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해도 '보화'이다.

6. <보화>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유익'이다.

7. <보화>를 사려면, 어느 때는 생각보다 많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도 '보화'를 보고 사는 것이다. 결국 '보화'가 그 값을 다 하고 많은 유익을 준다.

8. <보화>는 '좋아하는 자의 것'이다.

9.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보화'로 보고 사서 귀히 쓴다. 귀히 써야 보화다.

10. <금, 돈, 보석>만 보화가 아니다. <세상 만물>이 다 보화다. 세상 만물들을 보화같이 귀히 써야 '진짜 보화'가 된다.

11. <쓰는 자의 방법>에 따라서 보화다.

12. <생각>이 보화다.

13. <뇌>가 보화다.

14. <자기>가 보화다.

15. <아는 것>이 보화다.

16. 세상에는 ‘보화’가 많고도 많다. ‘찾는 자’가 주인이다.

17. 뇌 차원, 생각 차원, 영 차원을 높일수록 ‘보화’를 얻게 된다.

18. <성자가 주시는 것>이 ‘보화’다.

19. ‘보화의 소경’은 보화를 줘도 모른다.

20. <보화>는 ‘찾는 자’에게만 보인다.

21. 거리 , 광장, 산과 들에 있는 보화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버려져 있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지나치기도 한다.

22. ‘쓰는 자’에게 보화다.

23. ‘지혜의 보화’다.

24. 차원대로 ‘보화’를 얻고 즐기고 누린다.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25. <자료>가 보화다. 만들고 가공해야 ‘더욱 빛나는 보화’가 된다.

26. <원석 보화>다. 고로 처음에는 눈에 안 띈다. 봐도 모른다.

27. <보화>는 ‘속’에 있다. 거죽을 벗겨내야 된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화다.

29. <말씀>이 보화다.

30. <말씀을 행하는 것>이 ‘가공된 보화’다.

31. 산도, 만물도, 돌도 ‘어떤 형상과 모양이냐’에 따라서 보화다.

32. <아이디어>가 보화다.

33. 처음에는 ‘보화’로 생각하고 쓰다가, 안 쓰면서 가치를 상실하여 <보화>가 ‘평범한 물건’이 되고, <보화 인생>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34. 귀히 쓸 때 보화다.

35. 귀히 쓰는 대로 보화다.

36. 안 쓰고 가치를 상실하면, ‘보화’도 ‘쓰레기’가 된다.

37. <누가 버린 것>이라도 ‘아는 자’에게는 보화다.

38. <보화>인데 몰라서 버리는 자들이 많고, 몰라서 팔아 없애는 자들이 많다.

39. 이 사람에게는 ‘팔아 없애는 것’이 보화이고, 저 사람에게는 ‘그것을 사서 소유하는 것’이 보화다.
40. 귀히 보고 사랑하는 자가 ‘보화’를 찾아서 쓴다.
41. <만물>은 모두 보화다. 그러나 쓰는 자가 귀히 쓰느냐, 귀히 안 쓰느냐에 따라서 ‘보화’가 되기도 하고, ‘보화’가 안 되기도 한다.
42.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사는 것’이 보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땅을 파는 것’이 보화다.
43. <그때 자기가 처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보화다.
44.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자에게는 ‘파는 것이 보화’다. 물건을 사는 자에게는 ‘사는 것이 보화’다.
45. 자기 취미대로, 자기 재능대로 보화다.
46. 술과 담배도 ‘먹는 자’에게는 보화이지만, ‘안 먹는 자’에게는 보화가 아니다.
47. ‘사랑하는 자’에게 보화이고, ‘필요한 자’에게 보화이고, ‘원하는 자’에게 보화다.
4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화다.
49.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보화다.
50. 우상은 하나님의 심판거리이다. 유일신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 때, 더 이상 <우상>이 보화가 아니다.
-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51. 어떤 것이 ‘자기에게 보화’인지, 의미를 깨달아라.
52. <깨끗한 것>이 보화다.
53. <건강>이 보화다.
54. <자기 할 일을 깨닫는 것>이 보화다. <자기 할 일>을 깨닫고 행할 때 ‘더 빛나는 보화’가 된다.
55. <자기 모순을 깨닫는 것>이 보화다. <자기 모순>을 깨닫고 고칠 때 ‘더 빛나는 보화’가 된다.
56. <시대 말씀>이 보화이며, <휴거 말씀>이 보화다.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할 때 ‘빛나는 보화 인생, 보화 영혼’이 되고, ‘더 빛나는 휴거 인생, 휴거의 영혼’이 된다.
57. <보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생활 속의 보화’를 모른다.
58. 사람들은 <보화>를 모르니, 보화인데도 싫어하고 멀리하고 산다.
59. 그래서 <깨닫는 것, 아는 것>이 보화다.
60. <기도>가 보화다. 기도를 통해 ‘더 크고 귀한 보화’를 얻게 된다.

61. <땅의 보화>가 있고 <하늘의 보화>가 있다.
6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보화>가 있다.
63. 날아다녀도 ‘목적’이 없으면, 날개만 아프다.
64. 넓은 세상에서 살아도 ‘할 일’이 없고 ‘할 일’을 안 하고 살면 가만히 앉아서 살고, 좁은 곳에 갇혀서 살아도 ‘할 일’을 하면서 살면 넓은 하늘을 날면서 살게 된다.
65. <자기 육>은 좋아하고 기뻐하며 가던 곳인데, <자기 영>은 영원히 고통 받는 곳이다.
66. 사람들은 안다고 하며 살지만, 모르고 살고 있다.
67. 알기는 아는데 백지장만큼만 알고 사니, 결국은 육도 영도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68. 성자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69. 사람들은 ‘그릇된 인식관’을 가지고서, 옳다고 하며 살아간다.
70.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말아라.
71. <육>은 <영>같이 참지를 못한다.
72. <신>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니 그때까지 참으시지만, <인간>은 모르니 참지를 못한다.
73. 사람이 자기 뜻대로 계획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인도하여라.
74. 사람이 한 번 계획하고 만들어 놓고 살게 되면, 그것을 없애고 새롭게 더 좋게 한다 해도 다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자기 터전에서 뿌리박고 살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 주기 어렵다. 씨를 뿌리기 전에 인도해라.
75.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농부’다. 확대하면 생명은 ‘밭’이고, 인도하는 자들은 ‘농부’다. 부지런해야 잡초를 뽑고 관리하여 옥토 밭으로 만들고, 부지런해야 곡식과 열매를 가꾸어 거둬들인다.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말과 행동>은 ‘인격’을 나타낸다.
2. <말과 행동>을 보면 ‘자기의 인격’을 숨길 수 없다.
3. 말씀만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 모순을 고치고 온전히 행해야 변화된다.
4. <참신부>는 ‘신부답게 온전히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격> 위에 ‘신앙’이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들어간다.
6. <인격>이 안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신앙’이 들어가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해도 자기 주관대로 하고, ‘지도자’가 돼도 사람들이 자꾸 피한다. 결국 성자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만들어진 그 선까지만 쓰신다.

7. 인격이 안 된 자는 크게 쓰지 못한다.
8. <성자의 참신부>가 되려면, ‘말과 행동’을 온전히 하여라.
9. 숨긴 것은 결국 다 드러난다.
10. <하나님의 역사>도 드러나고, <성자>도 드러나고, <주>도 드러나고, <진리>도 드러나고, <악한 자>도 드러나고, <사탄>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고, <사람의 말과 행동>도 드러난다.
11. 결국 행한 대로 드러나고, 행한 대로 받게 된다.
12.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자기도 그만큼 아프다.
13. 형제에게 ‘은혜’를 주면, 자기도 그만큼 기쁘다.
14. 행한 대로 받는 것이 <공의의 법>이다.
15.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잘하는 척’을 잘하고, 형제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 상처를 줘 놓고도 ‘안 그런 척’을 잘한다. 그러나 ‘그런 척’은 결국 드러난다.
16. ‘가짜 보석’은 시간이 가면서 색이 변질되고 빛이 바래니 결국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잘하는 척, 모르는 척’은 결국 드러난다. 고로 잘못했으면 회개해라.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17.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자는 그것이 ‘체질’이 되어서, 자기가 잘못하는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행한다. 그러다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자기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18.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며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체질’이 되지는 않았는지, ‘고질적인 병’이 되지는 않았는지, 어서 자기를 살피고 고쳐라.
19. 말과 행동을 강하게 하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그 속에 성자가 없으니 자꾸 반복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결국 성자를 만날 수 없게 되고, 황금성도 볼 수 없게 된다. 고로 꼭 고쳐야 된다.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성자도 분체도 ‘잘하는 자’를 크게 보지 않는다. ‘성자의 뜻대로 하는 자’를 크게 본다.
21. 최고의 실력자, 능력자는 ‘성자의 뜻대로 하는 자’다.
22. 아무리 뛰어나도 성자 안에서, 주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성자도 주도 인정하지 않는다.
23.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나 명예가로 성공했어도 성자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성자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에게는 영원한 성공이 허락되지 않는다.
24.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자라도 성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자는 쓰지 않으신다.
25. 형제들이 무시하고 세상이 천대하는 자라도 성자가 귀히 보고, 키우고, 쓰고 있는 자가 있다. ‘성자가 인정하는 자’가 큰 자다. 곧 ‘성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것을 명심해라.
26.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과 사명’을 보고 대하면 안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대하면 안 된다. / 유대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였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27. 윗사람에게는 잘하기 쉽다. 그러나 아랫사람에게는 잘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인격’을 나타낸다.

28. 자기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사명과 위치가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성자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29.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힘 빠지게 하지 말아라.

30. 형제들을 힘 빠지게 할수록, 결국 자기도 힘이 빠진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힘이 채워지지 않는다.

31. 형제를 만나면, 기운을 주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어라. 이런 자가 ‘성자와 주의 향기를 풍기는 자’다.

32. 만나기 무서운 사람, 불편한 사람, 가까이하기 싫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성자와 주와 일체 된 자라면, 누구나 만나고 싶다.

33. 지금은 <휴거>를 이루고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를 보내고 있다. 성자의 말씀을 듣고 따지지 말고, 자기 모순을 깨닫고 고쳐라.

34. <자기 인격>에 따라서 ‘상대의 좋은 면’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상대의 부족한 면’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한다.

35. ‘상대의 단점, 부족한 면’만 보면, 결국 자기도 얻는 것이 없고 발전하지도 못한다.

36.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의 모순’을 생각하고 고쳐야 <황금성>에 가까워진다.

37. 말 한 마디도 생각하고 해라. 자기에게는 ‘나비가 날갯짓하는 듯한 작은 말’이지만, 상대에게는 ‘태풍’같이 충격적으로 느껴져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낙심한다.

38.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명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주의 마음과 행실을 가져라. 너로 인해 생명을 실족시키지 말고, 너로 인해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라.

39. 어린 자도 귀히 보아라. 그가 커서 너를 가르칠 자가 되기도 한다.

40. <말>은 ‘생각의 결과물’이다. 고로 말하는 것만 봐도 ‘마음 상태, 생각 상태, 정신 상태, 혼 상태, 영 상태’를 알 수 있다.

41. 어느 때는 말만 잘해도 ‘축복’을 받고, 말만 잘못해도 ‘심판’을 받는다.

42. 베드로는 메시아를 인정하고 고백하여 ‘천국의 키’를 받았고, 악평자들은 메시아를 악평하여 ‘지옥의 키’를 받았다.

43. 말의 위력을 깨달아라.

44. 마음의 위력, 생각의 위력, 행실의 위력을 깨달아라.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귀한 잠언 (잘 전할 것)

1. (성자) 너의 사랑은 ‘너’만이 내게 줄 수 있다.
2. (성자) 네 사랑이니 네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네가 사랑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사람’이 된다.
3. 자기 사랑은 무한하다. 모두 사랑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4. 상대가 고통 속에서 안 좋게 대하는 대로 대하면, 그를 못 살린다. 그에게 ‘희망의 답’을 주어라. 주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5. 저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사랑은 무한하다.
6. <정신적인 사랑>이니, 잘해 주는 것도 끝도 없이 무한한 것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모두에게 ‘사랑의 희망’을 주어라.
7. 힘들 때 한때 잡아 주고 이끌어 올려 주어라. 그러면 다시 오른다. 힘들 때 잡고 오를 자가 없으면 그냥 하산하게 된다.
8. 한때 코스의 한계선에 다다랐을 때, 그때 잡아 주어라. 그때 잡을 자가 없어서 못 오르면, 내려간다. 그러면 ‘인생 길의 운명’이 달라진다.
9. 샘은 샘물이다. <샘>에는 항상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 희망으로 왔다가 물이 없으면, 다른 샘으로 간다.
10. <샘>이 “물을 먹어라.” 말할 필요도 없다. 목이 타면, 물인지 아니 알아서 먹는다. 다만 누구에게는 물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면 <샘>이 아니다. 이는 <사람>이다.
11. <샘>은 ‘샘 역할’만 해야 ‘샘’이다.
12. 사람이 힘들 때는 안 좋게 생각하고 행한다. 그때 그가 행한 대로 대해 주면,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못 살린다.
13. 힘들 때는 생각이 ‘좌절, 포기, 낙심’으로 흐르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는 것이니, 그가 말하는 대로 대답하고 대해 주면 안 된다. 이끌어서 힘을 줘야 ‘가던 길’을 간다.
14. <새 차>도 기름이 떨어질 때가 있다. 놀라지 말고 ‘자기 기름’이라도 비상으로 넣어 주어라.
15. 나무는 나무다. 고로 나무에는 별의별 새들이 다 날아온다. 더 이상 날 수 없는 새, 놀러 오는 새, 쉬러 오는 새 등 종류도 많다. 그런데 나무가 “너는 앉지 마. 너는 앉아.” 한다면, 그것이 <나무>냐. <사람>이지.
16. <샘>은 희망이다.
17. <샘>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18. 너는 사람들이 바위 절벽으로 기어오르도록 바위 절벽으로 뻗어 올라간 ‘침낭쿨’이 되어 주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설 수 있도록 ‘그네’가 되어 주어라.
19. 자기가 갈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오를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딛 길로 간다. 그때 침낭쿨이 있으면, 순간 그것을 잡고 올라간다. 침낭쿨이 필요한 자는 잡고 올라갈 것이고, 필요하지 않은 자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없이 ‘침낭쿨’이 되어 주면 된다. 침낭쿨이 “너는 나를 잡고 이리로 가. 너는 가지 마.” 하면, <침낭쿨>이 아니다. <사람>이다.

<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지켜라. 시간을 지키면, 시간을 지키는 자들끼리 물이 흘러가듯 행하면서 간다.
2. 시간이 되면 모여들고, 시간이 되면 흩어진다.
3. 시간을 숨 쉬듯 쉼. 내쉴 때는 내쉬고,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셔라.
4. <만물>은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이 시간을 안 지키면 <만물>도 못 만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성자>도 왔다 가서 못 만난다.
5. <시간>은 ‘시계’가 가듯 간다. ‘날짜’가 가듯 간다. ‘지구’가 돌아가듯 간다. ‘낮과 밤’이 오고가듯 간다.
6. 시간과의 싸움이다. 행하면 얻는다.
7. 제때 행해야 얻는다.
8. ‘제때’가 황금 시간이다.
9. 자기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은 왔다가 ‘때’가 되면 간다.
10. 시간과 같이 ‘제때’ 사랑하고, ‘제때’ 행해라.
11. <시간>은 ‘사랑하는 자’다.
12. <시간>은 ‘물 그릇’이다. 시간으로 ‘얻을 물’을 담아 간다.
13. 사랑하면, 탄 세상이다. 달리 보인다.
14. 시간을 시계같이 쉼. 그러면 ‘시간의 신’이 된다.
15. ‘때’는 와도 서 있지는 않는다. 왔다가 천천히 간다. 그 기간이 ‘때’다.
16. 시간을 지켜라. - 이는 ‘때의 시간’을 지키라는 말이다. ‘존재물의 존재 시간’을 지키라는 말이다.
17. 꽃이 있다 하자. 그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
18. ‘시간 지키기’와 ‘존재물의 존재 시간을 지키기’다. - 이 두 가지를 지키는 것이 ‘때와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19.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때’다.
20. 성자도 오셨을 때부터 가실 때까지가 ‘때’다.
21. 시골의 장날이 오면 아침부터 해 지는 때까지가 ‘때’다.
22. 없는 것은 ‘하나’만 있어도 다르다.
23. 가정에서나 개인에게나 ‘없는 것 하나’만 있어도 다르다.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기는 쉬워도 <그 말씀과 법>을 지키기는 어렵다.
2. 잘되려고만 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천국에 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경력>을 가장 많이 세운 자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4. <세상 경력>도 세우기 어렵지만, <성경을 이루는 경력>은 아무나 세우지 못한다.
5. 성경을 이루면, '하나님이 시대에 쓰시는 주인공'이 된다.
6.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와 원수는 사랑하기 정말 힘들다.
7. 자기를 해하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8. 누가 자기를 해하는데 참는다고 참아지겠느냐. 정말 화가 날 일이 있는데 참는다고 참아지겠느냐. 깨달고 주인이 됐기에 참고 사랑하는 것이다.
9. 산에서 토끼를 사냥하는 자들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안 하겠느냐. 자기가 '이 산을 내가 쓰니 내 산이다. 이곳에 산짐승들이 와서 사니, 내 동물이다. 그러니 죽이면 안 되겠다.' 하고 깨달으면 총을 버린다.
10. 사람이 혈기를 못 내게 한다고 안 하겠느냐. 화를 못 내게 한다고 안 하겠느냐. 가르쳐서 깨닫게 해라. 본인이 알고 깨달으면, 도끼 가지고 자기 발목을 안 찌듯 화를 안 낸다.
11.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하신 일'을 깨달아라. 그래야 다른 길로 안 간다.
12.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하신 일'을 깨닫게 해 주어라. 그래야 좋아하며 다른 길로 안 간다.
13. <악한 자>는 기회만 있으면 생명을 해하려 하지만, <구원자>는 기회만 있으면 생명을 살리려 한다.
14. 상대는 자기에게 '말의 총과 검'을 던져도 자기는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랑과 화평의 말'을 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절대적으로 함께하신다.
15. 신부는 '성경말씀을 지키는 재미'로 살고, '신랑 되신 성자의 말씀을 지키는 재미'로 사는 것이다.
16. 성자의 말씀을 지킨 자는 일평생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자랑하며 이야기한다.
17. 평화롭게 살면 개인도 민족도 10000배나 좋게 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면 전쟁을 안 해도 10000배나 손해 간다.
18. <개미>라도 '조건'이 없으면 못 잡아당긴다. <코끼리>라도 '조건'이 있으면 잡아당길 수 있다. '조건 대 대가'다. 의인이 기도하는 만큼 판국이 달라진다.
19. <사랑과 평화의 왕, 메시아>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니, '평화'가 깨져 <전쟁의 세계>가 되었다.
20. <평화>가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평화>가 없다.

21. 상대가 잘못했어도 무조건 사랑해 놓고 봐야 된다. 이것이 정말 '사랑'이다.
22. 잘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못하는 자와 자격이 없는 자도 사랑으로 대하고 평화롭게 해야 표적이다.
23. 성자의 신부라면, 누구든지 '사랑과 화평'으로 대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신부'가 아니다. '천국'에도 못 간다.
24.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기도하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25.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실천한 대로 그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다.
26. 하나님은 <평화의 기준>을 세운 자에게 역사하시며 함께하신다.
27. <평화>는 '절대 사랑'이다. <사랑> 없이는 평화롭게 못 한다.

<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경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벧전 2:9)" 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은 모두 '개성의 왕'이다. 자기만 왕이 아니라, 각 사람 모두가 '개성의 왕'이다.
2. 어려도 '개성의 왕'이고, 사명이 없어도 '개성의 왕'이고, 작은 자라도 '개성의 왕'이다.
3. 인생은 누구나 '개성의 왕'이니,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왕'같이 귀히 대해야 된다.
4. <왕>은 잘 대해야 된다.
5. 어린 자들도, 사명이 낮은 자들도 <왕> 같은 자이니, '왕'같이 잘 대해 줘야 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행한다.
6. '개성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성의 특성'을 따라서 <왕>같이 잘 대해 주어라.
7. 자기가 '이 면의 개성의 왕'이라면, 저 사람은 '저 면의 개성의 왕'이다.
8. 어리다고 제재하고, 부족하다고 제재하면 <개성의 왕들>이 '개성의 빛'을 잃게 된다.
9. 오직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중심이다. 그리고 주 중심이다. 그 앞에 모두 '각 센터의 개성의 왕들'이다.
10. '머리'는 하나다. 나머지는 모두 '지체'다. <각 지체>는 모두 '개성의 왕들'이다.
11.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의 '개성'을 살려 줘야 된다.
12. 하나님이 창조하신 '개성의 뜻'을 모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13. 말과 행동을 잘해라. 모순된 말과 행동, 거친 말과 행동,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절대 고쳐라. 그래야 <황금성>에 간다.
14. <새>가 날아오게 하려면 '새가 앉을 발판'을 만들어 줘야 하고, <독수리>가 날아오게 하려면 '독수리가 앉을 발판'

을 만들어 줘야 된다.

15. 산에도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으니, 그것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발판’이 되어,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도 <산 정상>까지 오르게 된다.

16. <생명들>이 ‘개성’으로 뛰고 달릴 ‘발판’을 만들어 주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섭리가 부흥된다.

17. 지도자 먼저 ‘말씀 듣고 실천’이다. 그리고 ‘연구’다. 그래야 남을 지도하는 참지도자가 된다.

18. 보채는 아기를 버려두지 말아라. 잘 다루는 자에게 맡겨라.

19. <생명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다.

20. <주>를 모르면, 약해서 쓰러진다.

21. <주>를 아는 만큼 힘이 오고 능력이 온다.

22. <주>를 아는 만큼 그 힘으로 끝까지 간다.

23. 생활 속에서 <주>를 생각해라. <그가 한 말씀>을 생각해라.

24. <다이아몬드 원석>은 ‘여러 면’으로 깎고 가공해야 각 면이 서로 빛을 발하면서 <값비싸고 빛나는 보석>이 된다. 이와 같이 <주>를 세밀히 보고 <말씀>을 세밀히 봐야 제대로 깨닫게 되어, ‘여러 면’이 서로 빛을 발하며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보석>같이 ‘변하지 않는 자’가 된다.

25. ‘겉’만 치장하지 말고 ‘속’을 채워라. ‘속’이 비어 있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린다. 끝까지 가지 못한다.

26. <황금성>에 오르기 위해서는 끝까지 행해야 된다. 끝까지 가려면, ‘속’을 채우고 ‘내실’을 튼튼히 하여라.

27. ‘속’에서부터 ‘겉’까지 꼭 차야 된다. ‘속’이 온전히 차야 <황금성>까지 차오른다.

28. 차원을 높이면 보인다. 차원을 높이면 얻는다.

29. <노력, 실천, 도전>을 ‘뇌의 생각’에 딱 붙여 놓고 살아라.

30. <노력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자기 생각’에서 떨어지려 한다면,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듣고 붙이기’다.

31. 사람들의 말과 행위에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32. 사람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신의 단계까지 만들어야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만들지 않은 자는 ‘사람의 속’을 헤아리지 못한다.

33. 사람들의 말과 행위로 인해 <자기 갈 길>을 놓고 흔들리지 말아라.

34. 사람 중심이 아니다. 오직 주님, 오직 성자,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이다.

35. 삶 속에서 작고 큰 파도가 칠 때마다 흔들리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인생 파도 타는 법>을 배워라. 큰 군함은 파도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군함같이 튼튼한 자>가 되고, <신앙의 거목>이 되어라.

36. <자기 가치>를 깨달아라. 가치를 알아야 끝까지 간다.

37. <가치>는 ‘하늘과 같이’ 찾아야 된다.

<2014년 12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음식>도 ‘맛’이 있어야 찾게 되고 기쁨을 얻듯이, <인생>도 ‘맛’이 있어야 기쁘고 보람 있다.

2. <인생의 맛>은 ‘생각하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다.

3. <음식>은 요리하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4.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아서 ‘인생의 맛’을 못 느낀다.

5.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총명함이 없어지고 흐리멍덩해진다. 그러다 뇌가 굳어서 ‘인생의 맛’을 못 느끼게 되고, ‘맛’을 모르니 ‘기쁨’도 없어진다.

6. ‘맛이 없는 음식’은 먹기 싫다. 생각하지 않아서 ‘맛을 잃은 굳은 뇌’는 결국 ‘맛을 잃은 인생’을 낳게 된다.

7.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맛’을 느낀다.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고 괴로운 맛’을 느낀다. 자포자기하면, 즉시 ‘고통’이 온다. 좋게 생각해야 ‘좋은 맛’을 느낀다.

8. 사람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계속하려 해도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육신>은 항상 ‘육적인 것’을 생각하고 ‘자기 삶, 자기 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고로 <육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받아야 ‘한계’를 벗어나 ‘더 이상적인 생각’을 하여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아도 생활할 때는 ‘자기 삶’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한다. 교회 갈 때 따로, 생활할 때 따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붙어 사는 자’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 주권권 안>에 있기만 한 자’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믿는 것은 기본이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본 생활이다.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 생활이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면서, 수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의논해라.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것을 행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항상 생각해라. 그 생각을 알아냈으면 행해라. 이것이 ‘산 자의 삶’이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기만 하고, 생활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체 신앙’이다.

14. 삼위일체를 ‘부모’로 믿기만 하거나 ‘애인’으로 믿기만 하고, 자기 삶 속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면 <인생의 맛,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한다.

15. 한방에서 같이 살아도 생각하지 않으면 몸이 달아도 못 느끼고, 같이 밥을 먹어도 못 느끼고, 매일 봐도 그 생각을 몰라서 심정이 안 맞다. 같이 살지만 실상 ‘남남’이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어도 생활 가운데 늘 생각하지 않으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서 심정이 안 맞게

되고, 결국 ‘남남’처럼 살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삶 속에서 생각해라. 그래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되고, 정이 붙고, 사랑이 붙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 사는 맛, 신부로서 사는 맛’이다.

18. 늘 생각해라. 의논해라. 대화해라. 말해라. 같이 행해라. 이것을 안 하면 ‘같이 사는 맛’이 없고, ‘경영하는 것’이 깨진다.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9. 생각해라. 그리고 행해라. 그래야 ‘인생의 맛’을 느낀다.

20. 사람이 생각해야 생각에 따라서 ‘맛’을 느끼고, 자꾸 움직이며 행해야 그 행위에 따라서 ‘삶의 맛’을 느낀다.

21. 몸은 서로 달아야 느낀다. 바람도 불어와서 몸에 달아야 차갑고 더운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사람은 행해야 ‘맛’을 느낀다.

22. 눈은 봐야 느끼고, 귀는 들어야 느끼고, 입은 말을 해야 내용대로 느낀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은 행해야 ‘삶의 맛’을 느낀다.

23. <생각>을 움직이면 ‘생각’이 맛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면 ‘몸의 신경’이 맛을 느낀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말 존재하신다. 정말 함께하신다. 때마다 도우신다. 그리고 하실 말씀을 하신다.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자기가 가만히 있으니 못 느낀다.

25. 성자와 분체가 옆에 와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지 않으면 평생 못 느끼고 모른다.

26. <몸>이 가만히 있더라도 <생각>이라도 하면 ‘생각’이 느낀다. 성자를 생각하여 <생각>이 성자에게 닿으면, ‘생각’이 성자를 바로 느낀다.

27. <몸>을 움직여 행하면 더 잘 느낀다. 자기가 성자의 생각대로 행하여 <몸>이 성자에게 닿으면, ‘몸’이 성자를 바로 느낀다.

28. <영>이 성자에게 닿고 <영의 생각>이 성자에게 닿으면, 성자를 바로 느낀다.

29. 기도해라. 기도하면,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닿아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된다.

3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해라. 주를 생각해라. 관심을 가져라. 사랑해라.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31. 성자와 주를 진정 사랑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32. 성자와 주를 진정 사랑하면, 그 말씀을 안 지킬 수가 없다.

33.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

34. 실컷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아쉽거나 힘들면 불현듯 성자를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바깥을 쏘다니다가 비가 오니 집 생각이 나서 전화하듯 하느냐. 그런 삶으로는 휴거되지 못한다.

35. <천국 황금성>은 범사에 성자와 주를 생각하고, 하늘 최고 수준의 신부 말씀을 듣고, 신부로서 그 말씀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행해야 가는 곳이다.

36. 애인이 곁에 있을 때는 늘 대화하고, 애인이 외국으로 떠나면 전화하며 통해야 된다. 성자가 떠나시면, 전화로 통하듯 <교통하는 시대>로 바뀐다.

37. 이제 지구 역사상 더 이상은 '성자가 옆에서 같이 사는 때'는 없다. 이제 천국에 가서나 보게 된다. 이제 부르면서 교통하는 시대다.

38. 성자를 늘 생각해라. 대화해라. 이야기해라. 의논해라. 그러면서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교통마저도 못 하면 외롭고 쓸쓸하고 곤고한 세계가 찾아온다. 고생길이 확 열려서 그 길로 가게 된다.

39.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가 보낸 자를 항상 생각하고 불러라. 부르면 100% 통한다. 안 부르면 100% 안 통한다. 항상 생각하고 부르면서 통하며 살아야 '신부로서 섭리 인생을 사는 맛'이 난다. 그리고 하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인생의 맛'을 느끼고 '마음 천국, 생활 천국'을 이루고 '휴거'된다.

40. 부모와 형제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라. 교회에서도 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해라. 그리고 의논해라. 그래야 화평과 화목이 찾아오고, 맛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

41. 늘 주를 생각하고 주와 대화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생각의 맛, 실천의 맛, 신앙의 맛, 인생의 맛'을 느끼고 <천국>이 된다.

42.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43. 앎이나 서나 주님 생각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생각이다.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일을 하다가 할 일이 남아 있어도 내가 끝내야지, 일이 나를 끝내게 하면 끝도 없다.

2. 내가 일을 끝내야지, 일이 나를 끝내게 하지 말아라.

3. 일을 다 끝내려다가는 세월이 다 간다. 고로 할 만큼 하고, 칼로 무 자르듯 자르고, 제시간에 끝내야 된다.

4. 일 다 하고 밥 먹으려다가는 못 먹는다. 일 다 하고 잠자려다가는 못 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일이 적으니 조금만 더 하면 일을 다 끝내고 찬밥이라도 먹고, 일을 다 끝내고 새우잠이라도 잤다. 지금은 일 다 하고 밥 먹으려면 굶어 죽고, 일 다 끝내고 잠자려면 잠 못 자 죽는 나의 시대다. 나의 몸이 되어 행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고로 일하다가 <기도 시간,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이 되면 칼로 무 자르듯 자르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다 집어던지고 떠나듯 해라.

5.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모른다.

6. 저기 가는 '태풍'이 네게로 오고 있다. 저기 강 건너편의 '복'이 네게로 오고 있다. 먼저 '태풍'을 피하고, '복'을 받기다.

7. <안 보이는 존재자>가 바로 영원히 믿고 사랑할 자다. - (하나님, 성령님, 성자)

8. <눈에 보이는 자>는 '태풍'이 불면 사라지고, '계절'이 가면 없어진다.

9. 궁금하면 물어보고, 파 들어가고, 찾아보고, 기도하여 육계로도 영계로도 보면서 행하여라.
10. 궁금해서 5000번 이상 성자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연구했다. 파 들어가 봤다. 깊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결국 성경의 인봉을 풀었다.
11. 궁금해서 파 들어가 봤다. 결국 '성자의 선물'을 발견했다.
12. '이미 발견된 것'보다도 '나머지 발견되지 않은 것'이 더 궁금한 것이다.
13. 일을 해야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이루어진다.
14. <배운 것>은 귀에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듯이, <영의 세계의 것>도 배워야 '들려오는 말'이 들리고 '무슨 말'인지 알게 된다.
15. <외국어>도 배운 사람에게만 말이 들려오듯, 외국어 같은 <영의 세계의 말>도 배운 사람에게만 들려온다.
16. 귀가 있어도 청각이 떨어지면, 말을 해도 희미하게 들린다. 이와 같이 <영의 귀>도 '청각'이 떨어지고 <영의 마음>도 '감각'이 떨어지면, <영계의 말>도 희미하게 들려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다.
17.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사니 <영의 귀>가 '청각'이 떨어지고 '영의 마음'이 '감각'이 둔해졌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18. 하늘에서 날아가던 매미가 오줌을 싸고 갔는데, 농부의 얼굴에 맞았다. 그런데 농부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고 비가 온다고 하며 일하다가 집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이와 같이 '물방울만 한 환난'이 떨어졌는데, 두려워하며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19. 뜨겁게 일하면 몸이 더워서 땀이 나는지, 비가 와서 젖은 것인지, 눈이 와서 맞은 것인지 모르고, 일만 한다.

20. 집에 빨래를 널어놓고 밖에 나왔는데 먹구름이 끼면, 비가 와서 널어놓은 빨래가 젖을까 봐 마음 졸이고 불안하다. 하물며 환난 때 생명을 놓고 나왔으니, 오죽이나 마음을 졸이겠느냐. / '내 심정'이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 몸'이 되어 뛰기를 기도한다.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좋은 것>을 줬다고 기쁘지 않다. <나쁜 것>을 줬다고 슬프지 않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셨으니 기쁘다.
2. <큰 자>가 줘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연 깊다.
3. 타인이 주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가 주기도 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기도 하고, 주가 주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기도 한다. 깨달아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4. <받는 자>는 필요한 대로 쓰지만, <준 자>는 '뜻'을 두고 줬으니 '뜻'에 맞춰서 써라.
5. 깨달아야 느낀다.
6. 눈으로 봐야 느낀다.
7. '눈'으로 안 봐도 '살'이 닿으면 느끼듯이, 생각하면 느낀다.

8. 스스로 느끼기도 하지만, 상대의 혼이나 영과 대화할 때 느끼기도 하고 깨닫기도 한다.
9.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면 느껴지는데, 전파가 닿듯이 영의 생각이 닿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에 닿은 것같이 느껴진다. 그때 이야기하고, 자기 사연을 말하고, 고할 것을 고해라.
10. 사람끼리도 생각하면, 서로의 몸이 닿듯이 ‘마음과 생각’이 닿는다. 상대의 ‘육’이 몰라도 ‘혼과 영’은 안다. 신령한 자는 ‘그 마음과 생각’을 ‘자기 육’에게 전달하여 “누가 자기를 생각하는구나.” 깨닫고, 자기도 느끼게 된다. 혹은 성자와 성령께서 아시고, 서로 연결하여 알게 해 주기도 하신다.
11. 성자와 성령은 필요한 대로 깨닫게 하여 서로 통하게 하고, 돕게 하기도 하면서 ‘뜻’을 행하신다.
12.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라. 그래야 상대의 사연을 느끼고 알게 된다.
13. 멀리 있어도 편지로 자주 통해야 상대의 마음을 알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자주 생각하고 또 실천해야 잘 알고 통하게 된다.
14. 기도다. 생각이다. 실천이다.
15. 생각하면 깨닫게 되니, 행동하게 된다.
16. <실천>만이 ‘실체’를 낳는다.
17. 인간은 두 가지로 살아간다. ‘생각하기, 실천하기’다.
18. 생각을 안 하면 ‘할 일’이 아예 생각나지 않아서,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은 마치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다.
19. 생각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아서, ‘생각’으로 보니 ‘할 일’이 생각나게 된다.
20. 생각할수록 생각이 개발된다. 생각할수록 ‘신’이 된다.
21. 온종일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온종일 눈을 감고 있는 격이라서 아무것도 못 보듯 한다.
22. 먼저 ‘생각’으로 일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것들 중에서 골라서 행하기’다.
23. 성자와 같이 생각하기다.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성자와 함께 생각하고 행하기다.
24. 지능이 낮고 아는 것이 적으면, 착오가 많다. 고로 지능이 높고 아는 것이 많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생각하기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하기다.

<2015년 1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25. 생각으로 확인해라. 동서남북 다 확인이다.
26. 깊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27. 생각날 때는 성자와 성령께서 ‘혼’으로 확인하고 ‘육’으로 생각나게 하셨으니, 예사로 여기지 말고 확인하고 행하여라.

28. <생각>은 지구 세상에서부터 영의 세상까지 다 감정한다. <생각>은 ‘자기 혼’과 함께 행하기도 한다. 고로 ‘혼’과 의논하고 ‘혼’을 써서 생각해라. 자기 재능을 쓰고 특기를 쓰듯 ‘자기 혼’을 써라. ‘자기 혼’을 쓰는 자가 신령해진다.
29. <생각>은 마치 ‘전파’와 같다. ‘전파’를 보내서 감정하듯, ‘생각’을 보내서 투시하고 감정한다.
30. 자기 뇌, 자기 생각을 안 써먹으면, <뇌>는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모른다.
31. <뇌>는 ‘손’과 같다. 손재주가 있어도 안 쓰면, 무용지물이다. 쓰는 대로 ‘손재주’가 발달된다. <뇌>도 쓰는 대로 발달되고, <생각>도 하는 대로 발달된다.
32. ‘손’을 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손으로만 끝난다. 그러나 그 ‘손’을 가지고 하루 종일 100가지 일을 하면 해진다. <생각>도 <뇌>도 쓰는 대로 무한대다.
33. <자기 몸>이 ‘하나의 보이는 뇌’다. 행해야 얻듯이, 생각도 생각해야 얻는다.
34. 몸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으로 얻는 것이 많다. ‘구상’이다. ‘좋은 계획, 좋은 설계’다. ‘좋은 단어, 좋은 잠언’이다. ‘시’다.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손으로 쓰기만 하면 얻는다.
35. 먼저는 <좋은 생각>으로 ‘자기 인생의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36. 생각하면, 지능이 높아진다.
37. 생각하면, 구상이 떠오른다.
38. 생각하면, 할 일이 떠오른다.
39. <축구, 배구, 농구, 탁구, 수영, 건물 짓기, 글쓰기, 만들기>는 반복해서 자꾸 해 보면 잘되듯, <생각>도 자꾸 하면 ‘기술과 재능’이 발달되어 프로가 되고 능력자가 되고, 묘목이 거목 되듯 자꾸 크다.
40. 생각을 놀리는 자는 게으른 자다. ‘생각의 프로’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확 표가 나서 다 안다.
41. 생각을 놀리지 말고 자꾸 생각해라. 그리함으로 ‘생각의 신, 생각의 프로’가 되어라.
42. <육적 생각>을 하는 자와 <영적 생각>을 하는 자는 땅과 하늘 차이다.
43. 항상 ‘성자를 중심’하고 생각해라. 그래야 제대로 완전히 배우고 만들어진다. ‘자기 식’으로 배우면 프로가 못 된다. 성자와 주와 함께한 생각이 ‘첨단’이다. (아멘.)
44. 새벽에 생각해라. 그러면 <뇌>가 피곤하지 않아서 훨씬 더 예리하고 총명하다.

<2015년 1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45. 생각을 계속하면, 암기가 된다.
46.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는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머리 위로 순간 새가 날아가 버리듯 ‘기억’이 사라져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본 기억, 들은 기억, 생각한 기억조차 잊게 된다. 고로 기록해라. 무조건 기록해라.
47.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는 <생각나는 것>이 있고, 또 <기록하는 것>이 있다. ‘뇌에 기록, 종이에 기록’이다.

48. <뇌>에 기록하면 한순간이다. <종이>에 기록하면 유형 세계에서는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한다. 행하여 <행실>로 기록하면 평생 간다. <체질과 습관>으로 기록하면, 자기 스스로 수시로 행해진다.
49. 영감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얼마나 빨리 왔다가 사라지는지 깨달아라. 마치 글씨를 빨리 쓸 때 한 자를 쓰고 나면 바로 다음 획을 긋듯이, 순간 머리에 생각나고 다음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 마치 타자로 한 글자를 칠 때의 순간같이 순간 지나간다. 그러니 생각한 것을 즉시 기록해라.
50. 뇌에 기록하려면, 매일 수십 번씩 외우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잊지 않는다.
51. 종이에 기록한 것은 매일 한번쯤은 봐야 잊지 않는다.
52. 그것만 연속해서 생각하면, 암기된다.
53. <뇌>는 한정된 시간까지만 기억한다. ‘자기 애인’도 판생각하면 기억에서 잊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가다가도 판생각하면 기억에서 잊는다. 고로 기록해 놓고, 늘 봐야 된다. <생각>은 ‘실체 세계’다.
54. 어떤 사람은 세 살배기 자기 아기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시장을 다 보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데, 시장바구니만 들고 자기 아기는 버스에 두고 내렸다.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오다 보니, 그제야 아기를 놓고 내린 것이 생각나서 충격 받고 혼자 쓰러졌다. 결국 아기는 찾았지만, 엄마는 병원에 누워서 깨어나지 못하고 15일 동안 숨만 쉬고 있었다. 선생이 기도해 주고 살아나게 했다. 그 엄마는 전자 교단의 한 지도자 사모였다. 그 교단에서 그 엄마를 살리려고 모두 기도해 줬지만 못 살렸다. 결국 사명자가 가서 기도해 주어 살렸다. 잊으면 이같이 큰일이 생기니, 꼭 기록해라.
55. 한 번 잊어버리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몇 달이 가도 모르고, 1년, 5년, 10년이 가도 모른다.
56.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만 잠시 스쳐 지나갈 뿐 깊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지고 끊어진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57.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했는데, 응답이 없었다. 그래도 자기는 살아 있는 것이다. 생각이 살아 있으면 ‘산 자’다.
58.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찾으셔도 모른다.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은 ‘죽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59. 생각하는 자가 ‘살아 있는 자’다.
60. 인생은 ‘생각하는 맛’이다.
61. 인생은 ‘생각’으로 ‘맛’을 내고 살아간다.
62. 또한 인생은 ‘생각한 것을 행함’으로 ‘맛’을 내고 살아간다.
63. 자기를 향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생각하는 것은 작으나 크나 <위대한 생각>이며,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은 작으나 크나 <위대한 실천>이다.
64. <사람의 육신>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육신’은 멀쩡하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약하고 어린아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는 어린데 ‘마음과 생각’이 강철 같다.

1.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뜻을 펴신다.
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원하시는 것이 있으니, 곧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3. 메시아 예수님도 ‘혼자’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다면, 한 명도 전도되지 못하여 2000년 동안 <신약 구원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도 지구 세상에 <뜻>을 펴지 못하셨을 것이다.
4. 예수님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순교’를 하면서까지 전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지구 세상에 <구원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
5. <신약 복음의 터전> 위에 <이 시대 성약 복음>을 새롭게 펴게 된 것이다. 그 터전 위에 <휴거 역사>까지 진행되고 있다.
6.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없다.
7. <성약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 구원자’를 키우시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전도’하게 하심으로 펼쳐지게 되었다. ‘시대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니, <창조 목적의 뜻>과 <휴거의 뜻>을 펴게 된 것이다.
8. 1978년, 선생이 처음 서울에 와서 전도할 때는 ‘집’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전도의 힘, 전도의 능력, 전도의 자료’는 성자가 가르쳐 주신 <시대 휴거의 말씀>과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내게 주신 <사명>이었다.
9. 시대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니, ‘잘 곳’이 생겼고 ‘먹을 것’이 해결되었다.
10. 시대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생소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 같다.” 하고, 어떤 사람은 “기다렸던 말씀이다.” 하며 좋아서 듣는다. 생소하다 해도, 이단 같다 해도, 좋아해도 <이 시대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이다.
11. 선생 홀로 <시대 말씀>을 가지고 성자와 함께 시작한 <섭리역사>는 홀로 있을 때는 ‘기도’하고, 날이 새면 ‘말씀’을 전하는 삶의 연속이었다. 성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늘 함께하셨다.
12. 처음에는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 주었는데, 그냥 고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서서히 고쳐 주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스스로 사탄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성삼위와 시대를 알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3. <복음>을 전하면서 ‘잘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하며 선생도 존재했고, 그러면서 ‘아픈 자들’도 고쳐 주고 ‘말씀’도 전하며 계속해서 전도해 나갔다.
14.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시작할 때 현실은 가난했지만, 이 역사가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보고자 했던 역사’이며 ‘듣고자 했던 역사’이니, 더욱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15.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더니, 하나님과 성자는 ‘전도한 자들’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16. 전도하면 ‘발에 감춰진 보화 인생’을 만나 <보화가 숨겨진 발>을 사게 되고, <하늘의 운>과 <물질의 운>이 오게 된다.
17. 환경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전도’했더니, 그로 인해 ‘성전 문제’도 해결되었고 ‘수많은 군중’이 모

여들어 ‘섭리의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18. 전도하지 않으면, 개인이 구원받고 휴거되는 데서 끝난다. 전도해야 <뜻>을 펴고, 전도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룬다. <휴거>가 ‘최종 목적’이다.

<2015년 1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전도하면, ‘생명의 뜻’이 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개인이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창조 목적과 휴거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

2. 자기가 전도하면, 전도된 자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로 인해 <1000년 성약역사>가 흘러갈수록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아진다. 그리함으로 자기는 ‘신앙의 조상’이 된다.

3. (성자) 너희는 ‘성약 1000년 역사의 신앙의 조상이 될 자격자들’이다. 전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고, ‘개성대로 신앙의 조상’이 되어라. 본체가 살아 있는 당세가 ‘최고로 찬란하게 생명의 역사를 펼칠 때’다.

4.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하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 가도 ‘따르는 자들’이 없으니 ‘그들로 인한 영광’이 없다.

5. 자기가 전도한 자들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다.

6. 전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를 통해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빛나는 <신앙의 조상>이 되어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된다.

7.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뜻>, <창조 목적의 뜻>, <최첨단 휴거의 뜻>을 펴 나가게 된다.

8. 성자와 본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힘>으로 전도하여 ‘신앙의 영적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 생명을 잘 관리하고 키우면, 하나님께서 ‘큰 뜻’을 펴신다.

9. (성자) 내가 전도하면 당세에 ‘수많은 군중’을 보고, 나와 함께, 나의 육신과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누리리라.

10. (성자) 구약과 신약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섭리역사>는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토록 기다리며 보고 듣기를 원했던 역사다. 너희는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깨달아라.

11. (성자) 내가 나의 육을 통해 선포한 이 시대 말씀이 ‘권능’이며 ‘무기’이며 ‘철장 권세’다. 이 말씀으로 악도, 불의도, 악평도, 비진리도, 사탄도 질그릇 깨뜨리듯 다 깨부수게 된다.

12. (성자) 어디에도 없는 <대(大)희망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자. 너의 증거에 내가 함께하리라.

13. 전도를 많이 하면, ‘허다한 죄’도 다 덮어 준다. 생명을 구했으니, 생명으로 갚아 주는 것이다.

14. 전도하면, 전도된 자들로 인해서 자기가 더욱 튼튼히 존재한다.

15. 가장 빛나는 영은 ‘많은 생명들을 구한 자들의 영’이다.

16. <휴거>되는 데도 ‘전도’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17. 전도해야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운'이 자기에게 온다.

18. 선생은 전도해서 '월명동 집 사는 문제'를 해결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보좌 터'를 차지했다. 결국 '그 작은 집터'를 중심으로 해서 월명동을 개발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보좌인 자연성전>을 만들고 말았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뜻을 펴시는 발판'이다. 전도하여 '성전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19. 전도하면 '각종 뜻'을 이룬다.

20. 전도하면 '각종 문제'를 해결한다.

21. 전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각종 뜻'을 펴신다.

22. 전도한 만큼 성자도 분체도 '최고의 역사'를 펴 나간다.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너희는 나의 증거의 몸이다.

2. (성자) 너희는 나의 사랑의 몸이다.

3. (성자) 너희는 나의 희망을 이룰 몸이다.

4. (성자) 전도하면 '나의 꿈'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너희 자신의 꿈과 뜻'도 이루어진다.

5. 전도할 때는 '상대'를 꼭 파악하기다. 악평하고 꺾는 인사탄인지, 생명을 사냥하는 자들인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지 파악하기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 어떤 인식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다.

6. 생명을 파악하지 않으면, 전도하다가 오히려 껌에 넘어가게 된다.

7. 혼자서는 약하니, 둘씩 나가서 전도해라.

8. 전도를 잘하려면 '기도'로 무장해라. 기도하면, 성자께서 예정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다.

9. 전도를 잘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라. 자기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신앙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

10. 전도를 잘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가지고 해라.

11. 전도를 잘하려면 '담대'하고 '지혜'를 받아야 된다.

12. 전도를 잘하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자와 분체'와 일체 되어 같이 해야 된다.

13. 전도할 때는 '처음부터 말씀과 설명을 잘해 주기.'다. 처음에 잘못 가르치면, 그 생명이 영원히 다시 못 돌아오기도 한다. 그다음에는 '전문가와 같이 잘 관리하기. 교역자들이 목숨 걸고 관리하기.'다.

14. '연결 - 전초 - 가르치기 - 지혜롭게 잘 관리하기.' - 이것이 <전도의 생명>이다.

15.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신앙'이 죽는다.

16. <구원자>를 증거해라. 구원자를 알아야 ‘구원’을 이룬다.
17. <구원자>를 증거해라. 구원자를 알아야 ‘가장 강한 희망의 신앙인’이 되고, ‘가장 빛나는 신부’가 된다.
18. <구원자>를 증거해라. 구원자를 알아야 ‘사탄과 악평자들’을 이기고 ‘시험’도 이긴다.
19. <신약시대> 때는 순교하면서 ‘주’를 증거했다. ‘메시아’를 제대로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20. 이 시대는 ‘육의 순교’가 아니라 ‘정신적 순교’다. 역시 ‘주’를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주’를 증거한다!
21. ‘주’를 증거하면, 천법에 의해서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하고 시인해 준다.
22. ‘주’를 확실히 알아야 그리도 ‘주’를 증거하고 싶다.
23. (성자) 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의 열정’이 되고 ‘불’이 되어서 너를 행하게 한다.
24. (성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은 자는 ‘열정’이 식은 자요, ‘불’이 식은 자다. 너에게 ‘내 심정’을 주니, 받아라!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지하철이 가다가 정거장에서 순간 설 때 내리듯, 성자가 잠을 깨워 주실 때 순간 일어나야 된다.
2. 잠을 깨울 때 <사람>은 ‘몸’을 흔들어서 깨우지만, <성자>는 ‘뇌’를 터치해서 깨우신다.
3. 하나님과 성자의 ‘뜻’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안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을 알아라.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된다.
5. <인간이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은 ‘높게, 넓게, 깊게’ 행하시고, 어느 때는 ‘낮게, 좁게, 얇게’ 행하신다. 인간은 지능이 낮아서 아예 모른다.
6. 정원이 작은 집에서만 자라면 정원이 큰 데서 사는 자의 마음을 아예 모르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른다.
7. 세상에서는 많이 모이면 100만 명, 200만 명 모인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모이면 보통 1억 명, 2억 명이 모인다. 그러나 인간은 아예 못 봐서 모른다. ‘세상 육의 세계’는 ‘신의 세계’와 다르다.
8. 어느 때는 <인간>은 ‘크게’ 행하려 하는데, <하나님>은 ‘작게’ 행하며 뜻을 이루시니 모르는 것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땅의 일을 맡긴 사명자’에게는 항상 은밀히 깨우쳐 주시고 행하신다.
10. 인간이 책임분담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맡긴 일을 다 하며 책임을 다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다.
11. <하나님>은 10가지, 100가지, 전체를 보고 행하시고, <인간>은 한두 가지를 보고 행한다.
12. 인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범위’를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13. 가령 <지구>만 보고 <천국>은 못 보았기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듯,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범

위'를 다 못 보았기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모르는 것이다.

14. <인간의 지능>은 '아이큐 200 안'에 있지만, <신의 지능>은 '아이큐 100만, 1000만'이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른다. '아이큐 100~200 안에 속한 것'만 알 뿐이다.

15. 그러나 <인간의 영의 지능>은 '아이큐 100만'이 넘는다. 고로 <영의 지능>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잘 알게 된다.

16.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대로 작게 축소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17.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대로는 못 깨달으니, 작게 축소해서 깨우쳐 주신다.

18. 만물을 통해 쉽게 깨우쳐 주시고, 세상을 보게 하면서 쉽게 깨우쳐 주시고, 무엇에 빗대서 비유로 쉽게 깨우쳐 주신다.

19.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게 된다. <사랑>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게 된다.

<2015년 1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의>도 <죄>도 '생각'에서 시작된다.

2. <의>와 <죄>를 행하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된다.

3. '생각'에서 안 하면, '육'도 할 수가 없다.

4. '육'이 죄를 지으면, '생각'도 죄를 지은 것이다.

5. <인간의 뇌>는 '생각'이라는 한 사람이다.

6.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7. 인간은 '생각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8. 인간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행하면서' 살아간다.

9.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을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해야 된다.

10. <주의 생각>을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11. 생각하는 대로 '세포'도 행하고 '몸'도 행하며, '체질'도 변하고, '신경'도 영향을 받는다.

12. 고민하고 걱정하면 '체질'에도 영향이 가고, 계속되면 그로 인해 뇌도 '병'이 든다.

13. <생각>으로 '병'이 오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한다.

14. <인간의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영>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항상 '생각'은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

15.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생각'대로 <육체>가 움직이고 <영체>가 움직인다.

16. <육>은 ‘생각의 반응’을 받는다.

17. 육체도 영체도 서로 상대로 인해 반응한다. <육>은 ‘영의 반응’을 받고, <영>은 ‘육의 반응’을 받는다.

18. <육>은 ‘생각의 반응’을 받듯이, <영>은 ‘육의 반응’을 받는다. <육의 생각>은 ‘혼의 반응’을 받는다.

19. 인간은 <신의 세계>를 찾아갈 수 없다. 신이 찾고 인도해야지, 인간은 <인간 주관권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2015년 1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의 맛>이 무엇이나. ‘생각하는 맛’이다.

2. 생각하는 대로 ‘맛’이 달라진다.

3.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의 맛>을 모른다.

4. <육체의 맛>이 무엇이나. ‘행하는 맛’이다.

5. 행하지 않으면 ‘육신 자체’도 맛을 못 느끼고, ‘뇌, 마음, 생각’도 맛을 못 느낀다.

6. 생각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식물인간’이다. ‘죽은 자’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켜서 행한 것은 ‘공적’이 되고, <자기 영>이 그 공적을 가지고 ‘변화’되고 ‘하늘나라 형체로 형성’되어, 그 의를 가지고 <천국>이나 <낙원>으로 가게 된다.

8.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면서도 ‘생활할 때’는 거의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산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한다면,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고, 자기가 먼저 ‘대화’하고, ‘의견’도 나누면서 늘 ‘그 생각’대로 살아라. 이것이 진정 믿고 사는 것이다.

10. <기도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신다.

12. <돌>에서는 ‘찬기’가 나온다. <사람의 몸>에서는 ‘영기(靈氣)’가 나오고 ‘생각의 기’가 나온다.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생각’과 ‘능력’이 나온다.

13. 인간은 ‘자기 생각의 기’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한다. 그러나 ‘그 생각과 힘’을 가지고서 ‘행위’로 행해야만 원하는 것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다.

14. 사람은 <몸 자체>에서도 ‘열기’가 나간다. 그러나 그 ‘열기’는 약하다. 몸을 움직이면 ‘열기’가 강해진다.

15.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만 해도 ‘생각의 기’가 나가서 반응이 오지만, 생각을 행하면 최고로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서 ‘능력’이 나가고 ‘표’가 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이시다. 고로 그의 말씀은 ‘신의 생각’이며 ‘신의 기’다. 삼위가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이 ‘실체’가 되어 변화된다. 그 말씀을 행하면 더 큰 능력이 일어난다.

20. 고로 하나님은 메시아나 선지자들을 보내어 인간들을 인도하신다. 인간은 그제야 <신의 경지의 세계>를 찾게 된다.

21. 구약 4000년이 가도록 그들은 <구약 주관권>을 못 벗어났다.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니, 그제야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나왔다.

22. 신약 2000년이 가도록 인간들은 스스로 <신약 주관권>을 못 벗어난다. 거기서 아무리 차원을 높여도 역시 <신약 주관권>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야 그제야 <더 차원 높은 세계>로 벗어난다.

23. 현재에서 계산하고 ‘희망이 있는 곳’을 쳐다봐야 희망이 있다.

24. 과정에서 생각만 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말고, 노력하고 전진하고 수고해라. 그럴수록 희망이 있다.

25. 상대편을 배우고 상대편으로 가면, 그제야 상대를 이해한다.

26. 사람은 <자기 행위>에 따라 ‘고통’도 받고 ‘축복’도 받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고통’이 오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한다.

<2015년 1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은 성자께서 다시 오셔서 ‘땅의 할 일’을 다 하시고, 떠나가시는 때다. 그러나 총알같이 순간 떠나지 않으시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서서히 떠나가신다.

2. 성자가 가시는 길이니, <극치의 사랑>으로 미련 없이 ‘끝’을 보내야 된다.

3. ‘끝’에 못 하여 성자를 안 좋게 보내 드리면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고, 황금이 은같이 되고 만다.

4. ‘끝’에 못 하면, 안타깝게 된다.

5. ‘끝마무리’를 못 하면, 희망이 깨진다.

6. ‘끝’에 마음이 변하면, 운명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좌우된다.

7. 왜 ‘끝까지’ 해야만 되겠느냐. ‘끝’에 가야 ‘끝’이 나오기 때문이다.

8. 왜 ‘끝까지’ 해야만 되겠느냐. 끝까지 다 해 놓은 후에 점수를 합산해서 승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9. 중간까지 점수가 좋았어도 ‘끝’에 포기하면 승리자라고 할 수 없다. 중간까지 못 했어도 ‘끝’을 잘하면 운명이 바뀐다.

10. ‘끝까지’ 가는 자만이 승리한다.

11. ‘끝’에 가야 원하는 것이 있다.

12. ‘끝’에 가야 <희망의 문>이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꿈>을 이루기 때문이다.

13. 성자와 교통해라. 교통이 무엇이나. 어려울 때, 문득 생각날 때, 주일에, 교회에 갔을 때만 생각하고 부르고 찾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늘 생각이다. 늘 부르기다. 늘 찾기다. 그러면 성자는 떠나셔도 늘 가까이 곁에 계시는 것과 같다.

14. <말씀>을 귀히 여겨라. 성자는 떠나셔도 ‘성자가 그 육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곧 ‘성자’가 되어,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 주고, 자기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휴거 길로 인도하며 더욱 변화되게 해 주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게 해 준다.

15. <성자의 육>을 귀히 여겨라. 그래야 성자를 느끼고, 성자와 함께하게 된다.

16. (성자) 잠깐만! 나, 너 옆에 있다. 늘 생각하고, 부르고, 찾아라.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늘 네 생각 속에 넣고 살아라. 그리고 내 말을 기억하고, 내 말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늘 ‘교통’이 일어나서, 늘 같이 있는 것과 같다.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은 성자가 떠나고 계신다. ‘끝’을 잘하여 성자를 좋게 보내 드려라. 성자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위해 ‘희망의 이별’을 해라.

2. 성자가 떠나신 후에도 삶 속에서 성자와 늘 ‘교통’하도록 더욱 준비해라.

3. <교통>이란, 생활 속에서 성자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찾고 부르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분체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4.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끝마무리’까지 잘해야 된다.

5. ‘할 때’ 해야, 집중되어서 잘하게 된다.

6. ‘할 때’ 안 하고 나중에 다시 하면, 그때는 그 일에 다시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해지고 빨리 안 해진다.

7. 하던 일을 ‘할 때’ 해야 집중되어서 ‘끝마무리’도 잘하게 된다. 피곤하다고 다른 시간으로 미루면, 그때 다시 그 일에 집중해야 되고, 다시 일이 손에 잡혀야 되고, 그 일이 머리에 입력되어야 하고, 몸이 풀려야 해진다. 그래서 ‘할 때’ 안 하면 어렵다.

8. 일은 ‘끝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9. 일의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한가 하면, 옷을 다 입고 단장한 후에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고 손질하는 것같이 중하고, 글을 다 써 놓고 교정하고 정리하는 것같이 중하다.

10. ‘끝매듭’을 제대로 안 하면, 옷이 뜯어져서 실로 꿰매 났는데 시내를 걸어가다가 다시 풀리어 망신당하듯 하게 된다.

11. ‘끝매듭’을 안 하면,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보는 자들이 다 알게 된다.

12. 댐을 막은 후에 수문 끝매듭을 안 하면, 전체가 다 터져 버린다. 그 밑에 사는 마을과 도시는 물에 다 쓸려 가게 된다.

13. ‘끝매듭’을 완전히 안 하는 자는 마치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뉘지 않고 나오는 자와 같다.

14. 전도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는 자인데 모든 절차의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산에 가서 산짐승을 잡아다 자기 집 마당에 놓고 집에 들어가서 물을 끓이고 있다가 가 보니, 산짐승을 잡아서 매어 놓은 새끼줄은 끊어져 있고, 산짐승은 없어져 버린 것과 같다.

15.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밖에 나갈 때 대문을 안 잠그고 나가는 자와 같다.
16.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안 받고 오는 자와 같다.
17.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공원에 가서 놀다가 자기 가방을 놓고 오는 자와 같다.
18. ‘끝매듭’을 안 하면, 마치 돌 조경을 높이 쌓아 놓고서 뒤에 배수로를 내놓지 않아서 비가 오면 쌓아 놓은 돌 조경이 다 무너지듯, 자기가 한 일이 다 무너진다.
19. ‘끝매듭’을 안 하면, 그 일의 허점이 생기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집을 짓고 지붕을 덮지 않는 자와 같다.
21.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과일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어서 크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22. ‘끝매듭’을 온전히 안 하는 자는 마치 축구장에 관중이 꽉 차 있는 데서 상대편 선수를 다 제치고 상대 골문 앞에서 ‘슈팅’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자와 같다. 고로 그 일을 거의 다 해 놓고도, 마지막에 그 일이 수고가 헛되게 한다.
23.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죽은 사람을 위해 곡을 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하고 잘 보내 놓고서, 그 시체를 자기 방에 두고 같이 사는 자와 같다.
24.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밭에서 온종일 밭을 매고 잡초를 뽑아 놓고서 그것을 밭에 그대로 두고 오니 풀들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수고가 헛되게 끝나는 것과 같다.
25.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미꾸라지와 뱀장어를 솥에 넣고서 솥뚜껑을 안 덮고 불을 떼는 자와 같다.
26. ‘끝매듭’을 안 하는 자는 마치 새 집을 짓고서 청소를 안 하는 자와 같다.
27. <자기 할 일>과 <목적>을 놓고서 ‘시간’을 잡고서 <할 일>을 다 하고 <목적>을 이룬 자는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에게 공을 뺏기지 않고 혼자 달고 가다가 골인을 시킨 자와 같다.
28. <자기 할 일>을 놓고서 ‘시간’을 뺏긴 자는 마치 축구장에서 상대에게 볼을 뺏긴 자와 같다.
29. <자기가 목적인 바>를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2015년 1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우리>에게도 ‘때’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때’가 있다.
2. <세상>에도 ‘때’가 있듯이, <하늘나라>에도 ‘때’가 있다.
3. <세상>에서는 지구가 제자리에서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라면, <하늘나라>에서는 지구의 하루를 확대시킨 때를 ‘하루’로 정했다.
4. <하늘나라의 때>는 ‘확대’이고, <세상의 때>는 ‘축소’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5. 성경에 ‘하나님의 날 하루’는 ‘인간의 날 1000년’과 같다고 했다. 3십 6만 5천 분의 1이다.

6. <하늘나라>에는 ‘영들’이 살기에 ‘인간의 날 1000년’이 ‘하늘나라의 하루’라고 해도 시간이 금방 간다.
7. ‘영이 천국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성자께 물으니 ‘인간의 육이 지구에서 일생 동안 사는 만큼’이라고 하셨다.
8.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불꽃같은 눈’으로 ‘항상’ 인간들을 쳐다보신다. - 하나님이 ‘잠깐’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면, 그 순간에 ‘인간의 날 수년’이 가기 때문이다.
9. 그러므로 인간이 매일 매순간 삶 속에서 삼위일체를 부르며 자신을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삼위일체가 ‘순간’ 다른 데를 쳐다보실 때, ‘자기 인생’이 일순간 지나가 버린다.
10. 사람이 ‘잠깐’ 대화하다 보니, ‘하루 살고 죽는 하루살이’는 금방 늙어 버렸다. 그리고 사람이 ‘잠깐’ 논밭에 갔다와 보니, ‘하루 살고 죽는 하루살이’는 벌써 병들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와 같다. <하늘나라와 세상의 시간의 비율>을 깨달아라.
11. 생활 속에서 매시간 <삼위일체>를 찾고, <할 일>을 빨리해야 된다.
12. <원시인들>이 어떻게 사나 보니, 하루 종일 별 하는 일 없이 집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매를 따서 찢고 먹다가 하루가 끝났다. <발달된 나라의 사람들>은 하루에 2000리를 다니면서 수십 가지 일을 하면서 다녔다. <원시인들>이 ‘평생’을 살아도 <문명인들>이 ‘하루’나 ‘일주일’을 산 것만큼도 못하다. 영적으로 보면, <구시대 원시인들>도 그러하다.
13.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시대 구원자>와 일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채 ‘육신 일평생’을 사는 것보다, <삼위일체>를 믿고 <시대 구원자>와 일체 되어 ‘영적으로 발달’되어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14. <옛날에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살던 자들>은 ‘일평생’을 살았어도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것>을 ‘하루’도 못 누리고 죽었다.
15. 종교도 그러하다. <구시대 기성>이 ‘1년 동안 행한 것’이 <지금 이 시대 섭리>에서 ‘하루 동안 행한 만큼’도 안 된다. <구시대>는 ‘걸어 다니는 시대’다. 아무리 차원을 높여도 ‘아들 주관권’이다.
16. 어렸을 때 ‘1년 동안 행한 것’이, 성장하여 ‘하루 행한 것’만큼도 못하다.
17. 옛날에 차가 없을 때 ‘한 달 동안’ 걸어 다녔어도, 요즘에 차로 ‘하루 동안’ 다닌 만큼도 못 다녔다.
18. 이 시대는 종교와 정치와 사회가 모두 발달되어서 ‘하루’만 제대로 살면 엄청난다.
19. <옛날>에는 건물을 지을 때 바위 한 덩이를 ‘정’으로 깨는 데만 두 달씩 걸렸다. 그러니 건물 하나 짓는 데에 ‘100년씩’ 걸렸다. <지금>은 바위를 순간 ‘기계’로 잘라서 ‘몇 달’이면 건물을 짓는다. 몇백 배 빨라진 것이다.
20.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살면, 옛날 사람들이 1000~3000년 동안 산 만큼 ‘문화의 혜택’을 보고 누리며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섭리를 빨리 뛰는 자들’은 다른 자들보다 수백 배 더 뛰고 달리며 누린다.
21.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극치로 발달되어 있다. ‘콩’이 더 발달되어 ‘쌀’이 될 수도 없고, ‘쌀’이 더 발달되어 ‘다른 곡식’이 될 수는 없다. 이제 발달될 것은 거의 다 발달되었다. 종교도 ‘진리’를 다 내놓고서 발달되어 살아간다. 고로 이제는 ‘온전하게 살 때’가 왔다. 발달된 세계에서는 자기가 온전하게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온전하게 살 수 있다.
2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고, 그가 보낸 시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온전하게 살 때’다.

23. 이제 <인간의 발달>에는 한계가 왔다. <세상의 발달>은 물건을 달리 만든다거나, 그것을 개조하여 다른 차원으로 만들 뿐이다.

24. 이제 ‘육적’으로 발달될 것은 거의 다 됐으니, ‘영적’으로 발달할 것만 남아 있다.

25. 지금은 <종교>가 발달되어 진리를 다 내놓았고, 세상도 발달되어 누리고 사는 때다. 크고 발달된 지금 ‘하루’를 놀면, 어리고 몰랐을 때 20년, 30년 동안 논 셈과 같다.

26. 어렸을 때는 모르고 어리고 약해서 못 했다. 이제는 알고 컸고 강해졌으니 할 수 있다. ‘하루’만 제대로 하면, 어렸을 때 ‘10년, 20년’ 동안 했어도 못 했던 것들을 하게 된다.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27. <인간이 깨닫고 알았을 때>의 ‘1시간’은 <몰랐을 때>의 ‘10년’보다 훨씬 더 낮다.

28.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 아신다. 고로 ‘하루 10시간, 5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배워라. 그러면 ‘알았을 때의 하루’가 ‘몰랐을 때의 1000일’보다 낮다.

29.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는 ‘아는 자’다. 왜? 모르면 못 하기 때문이다.

3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는 자’를 쓰시고, ‘아는 자’에게 그 뜻을 알려 주시고, ‘아는 자’와 함께 행하신다.

31. <땅의 사람들>은 모르고, <저 하늘의 하나님>은 아신다.

32. <아는 자>는 ‘아는 그 센터의 신’이다.

33.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알게 된다. 고로 ‘신’이 된다.

34. 신은 아신다.

35. 전능자는 ‘무지 속에 있는 인생들 중’에서 ‘뜻 있는 자’에게만 알려 주시고, 그와 동행하면서 ‘뜻’을 행하신다.

36. 모두 ‘무지의 잠’을 자고 있다 하자. ‘깨워 주는 자’만 일어난다. 한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만 깨워서 데리고 가서 사랑한다. ‘다른 자들’은 ‘죽은 자’와 같아서 모른다.

37. <구시대>도 그러하다. ‘잠자니 모르고 있는 자’와 같다. 삼위일체는 ‘원하는 한 사람’만 깨워서 그와 동행하며 그와 역사를 펴시고, ‘잠자는 자들’을 보고 원하면 깨워서 데리고 가서 함께 뜻을 펴 나가신다. 고로 계속 ‘잠자는 자들’은 모른다.

38. 한번은 어머니가 “비가 와서 내가 밭에 못 가는 날에는 부침개를 해서 줄게.” 하셨다. 형제들은 모두 비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비가 왔다. 나는 어머니가 비 오는 날 부침개를 해 준다고 했으니, 계속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러나 형제들은 잊고 있었다. 그리고 피곤하다며 방에 가서 잠을 잤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셨는데 부침개를 하려는 김새가 보여, 나는 부엌으로 갔다. 어머니는 “방에 가 있어.” 하셨다. 할 수 없이 방으로 갔는데 형제들이 모두 자고 있으니, 나도 덩달아 잠이 왔다. 그래도 누워서 눈을 말뚱말뚱 뜨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꾸 잠이 와서 잠이 들지 않도록, 입으로 “부침개. 부침개.” 하고 계속 말하니, 먹고 싶어서 잠이 안 왔다. 그때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났다. 조금 있으니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다. “모두 자냐?” 하시기에 “저는 안 자요.” 했다. 어머니는 “비 오면 부침개 해 준다고 했는데 기다려야지. 너는 나와서 불을 떼라.” 하셨다. 나는 나가서 불을 떼고 부침개를 만들어 먹었다. “모두 깨울까요?” 하니, 어머니는 “뭘 깨워. 너나 먹어.” 하셨다. 다 먹으니,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와서 밭으로 일하러 나갔다. 1년 후에 동생들이 “어머니, 비 오면 부침개 해 준다고 하더니, 왜 안 해 줘요?” 했다. 어머니는 “잠자는

자의 몫은 없어.” 하셨다. 잠을 자니, 어머니가 부침개를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해 주신 때가 이미 지나간 것을 모른 것이다. 잠을 안 잔 나만 알고, 먹고 누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성자의 재림>을 실행하셨다. 그러나 무심하게 ‘시대의 잠을 자는 자들’은 몰랐다. 부침개를 해 먹은 지 오래전이듯이, 성자가 재림하신 지 오래전이다.

39. <성자>는 재림하시어 <시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재림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이제 ‘휴거 역사’를 펼치시고, ‘지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천국으로 서서히 떠나가고 계신다. 이미 때는 그렇게 되었다. ‘알고 따르는 자’만 알고 누리고 간다.

40. ‘아는 자 한 사람’이 ‘모르는 자 전체’를 이끌게 된다.

41. 고로 배워라. 배워서 알고 살아라. 알았다면, 이제 ‘시대의 잠’을 자는 자들을 깨워 주자. 성자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찾아서 데려오자.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42. 어머니는 늘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키가 크셨다.” 하셨다. ‘그렇게 키가 크셨나? 어머니 눈에만 커 보이셨겠지.’ 생각했다. 어느 날 회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는데,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보니 길었다. 두 분 다 큰 키였다. 할아버지는 180cm 정도였고, 할머니도 꽤 크셨다. 선생의 큰아버지도 키가 180cm는 넘었다. 작은 아버지도 180cm 가까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키가 안 크다. 그러나 “<키>가 작다고 ‘성자의 일’을 못 하지는 않는다. <마음>이 작으면 ‘성자의 일’을 못 한다.” 했다.

43.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지게질을 많이 해서 더 키가 못 컸다. (킁킁) 그리고 한창 키가 클 나이에 산에 가서 추운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느라 못 컸고, 베트남 전쟁터에 가서 3년 동안 적에게 들킬까 봐 웅크리고 다녀서 더 못 컸다. (킁킁)

44. 부모의 유전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어려울 때 태어나면 더 키가 못 크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성장>도 ‘시대’에 따라서 ‘구시대 때’는 더 못 컸다. 이제 <말씀>을 무한하게 주니 듣고 실천하면, 신앙도 육도 혼도 영도 무한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다.

45. <새벽 시간>에는 ‘신앙적으로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는 일’을 한다.

46. <새벽에 기도하며 생각하는 시간>에는 ‘온종일 생각해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47. <기도>도 ‘새벽’에 해야 깨달을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날 것이 생각난다.

48. ‘낮’에 <영의 세계>에 못 가는 자도 ‘새벽’에 깊이 기도하면 가게 된다.

49. 실제로 과학적으로 봐도 ‘새벽’에는 뇌가 10배나 총명하다.

50. 뇌가 총명할 때 생각해라.

51. <말씀>은 생명나무다. <뇌와 마음>은 과일이다.

52. 같이 했는데 ‘아는 자’가 안 알려 주니, ‘모르는 자’는 몰랐다.

53. 성자께서 우리와 같이 행하셨는데, ‘아는 성자’가 안 알려 주니, ‘모르는 우리’는 몰랐다.

54. <시대 하나님의 역사>도 ‘아는 자’가 이끌고 가면서 알려 주지 않으면, 모른다. 고로 이끌고 간 후에 ‘알려 줘야 할 것’은 꼭 알려 준다.

55.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오늘 너와 어디를 갈 건데, 가는 중에 위험할 때가 있어. 그러니 엄마 치마 꼭 붙잡고 다녀.” 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다 와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엄마, 위험한 곳이 어디 있었어?” 했다. “아까 내가 네 손을 잡고 왔지?” / “응.” / “그때가 최고로 위험했을 때야. 옆에 유괴범이 있었다.” 했다. 엄마가 아이에게 위험했던 때를 그 순간에는 알려 주지 않고 다 지나온 다음에 알려 주듯이, <섭리사 주인인 성자와 분체>도 <섭리의 신부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 순간에는 알려 주지 않고 ‘다 끝나고 알려 줄 때’가 있다. 그때는 악한 자들이 방해할 때가 많다. 그때 알려 주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악한 자들 때문에 더 의식하여 앞으로 더 가지 못할까 하기 때문이다.

56. 어떤 것은 알면 안 하려 하니 안 알려 주고 하게 한다.

57. 성자와 분체가 너의 육과 혼과 영을 지도하며 이끌 자다. 그가 이끄는 길은 항상 <구원의 길, 휴거의 길, 생명의 길>이다. - 이를 믿고 따르는 자는 더욱 강하게 이끌고 지도한다.

<2015년 1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잠깐만!

2. “잠깐만!”은 급한 순간에 부르는 성자의 소리다.

3. <신의 음성>도 ‘자기 인식’대로 들린다.

4. <성자의 음성>이라도 하늘이 흔들리고 진동하듯 들리지 않고, 사람이 말하듯 들린다.

5.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깨달아지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고, 느껴지면서 들리는 음성이 있고, 감동으로 전해지는 음성이 있다.

6. 대개 ‘감동’으로 <성자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 고로 감동되면, 성자에게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물어보아라.

7. 음성을 들었어도 ‘누구의 음성’인지 자세히 파악해 보아라. 귀신인지, 자기 주관인지, 자기 혼인지, 자기 영인지, 천사인지, 성자인지 꼭 물어봐야 된다. 확인, 또 확인이다.

8. 귀신, 마귀, 속이는 자, 악평자, 악한 자들은 거짓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나쁘게 말한다. 고로 <사망>을 면치 못한다.

9. ‘육의 귀’로 들리는 음성은 <육계에서 하는 말들>이고, ‘영의 귀’로 들려서 ‘뇌’로 전달되는 음성은 <영음>이다.

10. 성자께서 “잠깐만!”이라고 말씀하심은 ‘신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함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던 것과 행하던 것’을 순간 멈추고 다시 생각하고 행하게 하고자 함이다.

11. “잠깐만!” 하면 ‘잠’을 자다가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각종으로 생각하던 것’과 ‘행하던 것’을 멈추고 돌아보게 된다.

12. (성자) 잠깐만! 포기하지 마. 나 옆에 왔잖아. 자면 안 돼. 어서 일어나. 늦었어도 기도하며 나와 대화하자.

13. (성자) 잠깐만! 그러지 말아라. 네 생각이 틀렸다. 포기하지 말아라.

14. (성자) 잠깐만! <휴거>도 포기하지 말아라. <기도>도 포기하지 말아라. <사랑>도 포기하지 말아라. <신앙>도 포기하지 말아라. <만사의 모든 일>도 포기하지 말아라. 늦었어도, 가능성이 없어도, 자신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나며

지 시간을 가지고, 남은 힘을 가지고, 나와 같이 하자.

15. 늦었어도 행해라. 시간이 없어도 행해라. 포기는 금물이다.

16. 성자는 “잠깐만!” 하고 부르시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 고로 ‘자기 생각과 행위와 입장’을 보면, 성자께서 왜 “잠깐만.”이라고 부르셨는지 깨닫게 된다.

17. 범사에 “잠깐만!” 하는 성자의 음성이 ‘마음’에 들리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멈추고, <자기 행위>를 멈추고, 성자의 생각에 맞춰서 행해라.

18. (성자) 잠깐만! 위험하다. 조심해라. 앞을 보라. 옆을 보라.

19. (성자) 잠깐만! 나와 같이 전도하자. 내가 찾던 자다.

20. (성자) 잠깐만! 멈춰라. 그 일은 하면 안 된다.

21. (성자) 잠깐만!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22. (성자) 잠깐만! 저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망에 처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23. (성자) 잠깐만! 나 오해하지 말아라. 본체를 오해하지 말아라.

24. (성자) 잠깐만! 그것은 네 생각이다. 내 뜻대로 하자.

25. (성자) 잠깐만! 왜 분을 내느냐. 왜 혈기를 내느냐. 참아라.

26. (성자) 잠깐만! 그 형제를 다시 보아라. 그렇지 않다.

27. (성자) 잠깐만! 다시 보아라.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아라.

28. (성자) 잠깐만! 다른 마음 먹지 말아라. 내 뜻대로 하자.

29. (성자) 잠깐만! 다시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치면 못 깨닫는다.

30. (성자) 잠깐만! 멈춰라! 더 가면 사망길이다.

31. (성자) 잠깐만! 불평불만 하지 말아라. 감사해라.

32. (성자) 잠깐만! 잊어버리고 두고 온 것이 없는지 다시 보아라.

33. (성자) 잠깐만! 위험하다. 조심해!

34. (성자) 잠깐만! 건강 신경 써라.

35. (성자) 잠깐만! 사기꾼인지, 너를 도울 자인지 확인해라.

36. (성자) 잠깐만! 분별해라. 확인해라.

37. (성자) 잠깐만!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아라. 동서남북을 보아라.

38. (성자) 잠깐만! 안전 운전해라. 졸지 말아라.

39. (성자) 잠깐만! 그 사람은 만나면 안 된다.

40. (성자) 잠깐만! 나와 같이 그 생명을 만나자.

41. (성자) 잠깐만! 이성에게 문을 열어 주지 말아라.

42. 성자는 “잠깐만!” 하고 부르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행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하시며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깨닫도록 감동을 주신다.

43. 성자가 “잠깐만!” 하고 중지시켰는데 더 가다가는 마치 절벽이 뒤에 있는 줄 모르고 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듯, 가던 길에서 뒹굴게 된다.

44. “잠깐만!” 했을 때는 뒤에 ‘절벽’이 있거나, 앞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고로 그때는 즉시 ‘자기 생각과 행실’을 중지하고, 성자께 집중하고 확인해라.

45. “잠깐만!” - 이 말씀 속에 ‘화를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과 ‘횡재하는 방법’과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방법’이 들어 있고, ‘악을 멀하고 악평자를 멀하는 방법’과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이 들어 있다.

46. “잠깐만!” - 이 말씀으로 운명이 좌우되고, 생명이 좌우되고, 축복과 화가 좌우되고,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47. 잠깐의 기도, 잠깐의 찬양, 잠깐의 성자와 주 생각, 잠깐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잠깐’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2015년 1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는 ‘죽음’이 최고로 무섭고 두렵다. 이는 죽으면 ‘인생이 끝나기 때문’이며, 살아 있는 자들이 ‘죽은 자를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에게 최고 무섭고 두려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누구에게나 주셨다.

3. <육>이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가 보낸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구원자와 일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영>이 죽지 않고 ‘육’대신 영원히 삼위일체와 함께 살게 된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하여 ‘제2의 육 같은 영’을 살려 육이 영원히 살듯 영이 살게 하셨다.

5. <혼과 영>을 보면, ‘자기 육신의 모양과 형상’과 닮았다. <인간의 혼과 영>은 육이 태어나면서 생겼기에 마치 콩에서 다시 콩이 생기는 것과 같이 형성된다. 특히 <육에 속해 있는 혼>은 ‘자기 육신의 형체’를 그대로 닮아 있다. 고로 ‘육체’를 보는지 ‘영체’를 보는지 구분이 안 된다. <꿈에 보는 자기 모습>이 ‘자기 혼체’로서 ‘제2의 자기 육체’다. 자기 유전자로 낳은 자녀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다. <자기 육>을 통해서 ‘혼체’를 낳았고,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그대로 ‘자기 혼체’에게 간다. <자기 육의 모든 것들>이 ‘죽지 않는 혼체’에게 간다. <곡식의 씨>를 뿌리면 ‘씨’는 죽지만 거기서 ‘열매’가 열리니, ‘그 씨’가 ‘열매’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육신>이 뿌리면 ‘육체’는 때가 되어 죽지만, 그 행위를 ‘자기 혼과 영’이 다 가지고 가서 형체를 이루어 산다. <영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을 더욱 닮았는데, ‘자기 혼체’와 일체 되어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

6. 구원받지 못한 육과 혼과 영은 ‘죽었다.’ 한다. <하나님 주관권>이 아닌, <흑암 주관권>에 있는 고로 ‘죽었다.’ 한다.

7. 사람이 '기능'을 못 하면 '죽었다.'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서 기능을 못 하니, '죽은 육, 죽은 혼,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고 살면 '죽은 육, 혼, 영'이 되어, '육신'이 죽으면 '그 혼과 영'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세계>로 간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해도 자기가 몰라서 안 믿고 살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심판받게 한 것이다.

9. 인간의 최고의 소원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삶'이다. 또 하나는 '환경 좋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누리며 사는 삶'이다. 그다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건강하게 사는 삶'이다. 이 모든 소원은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구원자를 통해서 해 주신 말씀을 배우고, 주를 알고, 삼위일체와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루게 해주신다. 육신이 늙지 않고 영원히 안 죽는 삶, 무한하게 쓰고 누리며 사는 삶은 <혼과 영의 삶>으로 대체해서 이루어 주신다.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인간이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길'을 누구에게나 주셨다.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육의 행위'로 <혼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어, <육>은 늙어서 죽어도 <혼과 영>은 늙지도 않고 죽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삼위일체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

2. <집>을 짓고 만들듯이, <환경>을 공사하고 만들듯이, '자기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자기 영>을 만드는 것이다.

3. <집>이나 <환경>을 보아라. '각종 자료'를 가지고 수천 단계로 얼마든지 더 좋게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이와 같이 <영>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단계의 말씀'을 가지고 '육'이 행하여 얼마든지 더 좋게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

4. 인간은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사는 것을 소원한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육>도 이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도 영원히 살게 하시며 '황금 천국'을 만들어 '황금 집'을 지어 주신다. 그 집은 저마다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지어 주신다. <자기 육신>이 행하는 만큼 만들어 주신다.

5. <자기 육>이 세상에서 삼위일체를 믿고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하면 <육>도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시고, <육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에 자기 취향대로 환경과 집'을 만들어 주어 <영>이 거기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신다.

6. 굽이 낮든지 높든지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천국>이 되고 <이상세계>가 되게 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몰려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개성대로 흩어져 살게 하셨다.

7.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서 살아야 <이상세계>다. 고로 하나님은 <환경>을 수십 억, 수백 억 종류로 창조하여 '자기 개성, 자기 체질, 자기 생각, 자기 차원'대로 그 환경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8. <아파트>를 좋아하는 자는 작으나 크나 아파트에서 살아야 만족하고 기뻐한다.

9. <개인 주택>을 좋아하는 자는 작으나 크나 개인 주택에서 살아야 만족하고 기뻐한다.

10. 자기 취향과 개성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소원한다.

11. <물>을 좋아하는 자는 집 옆에 ‘바다’나 ‘호수’나 ‘작은 시냇물’이나 ‘작은 웅덩이’라도 있어야 좋아한다.

12. <산>을 좋아하는 자는 작으나 크나 자기 집 옆에 ‘산’이 있어야 좋아한다.

13.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가 <기쁨>이며 <천국>이다.

14. <집>도 ‘자기 취향’대로 얻고 짓고 살고, <옷>도 ‘자기 취향’대로 입고 살고, <음식>도 ‘자기 취향’대로 먹어야 <천국>이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서 살아간다. 자기 체질, 취향대로 좋아하며 살아가니 ‘더 좋은 곳’이 있어도 옮기기 싫어한다. <종교>도 그러하다. 자기 체질과 취향대로 믿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참여사’가 있어도 ‘구원이 없는 우상 종교’를 좋아하며 믿고 사는 것이다.

15. <개인 주택>을 좋아하는 자는 ‘아파트’를 싫어하고, <아파트>를 좋아하는 자는 ‘개인 주택’을 싫어한다. 고로 옮기는 것도 싫어한다. <종교>도 그러하다.

16. 오직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뜻’대로 살 때 <현재>에 ‘육’도 이상적이고, <미래>에 ‘영’도 이상적이고 영원하다.

17. 서로 ‘자기 집과 환경’이 더 좋다고 하며 ‘자기 체질과 취향’대로 좋아하며 살아가도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18. 술과 담배를 하는 자들은 그것이 체질이 되고 취향이 되어 ‘하는 게 낙’이라고 한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자들은 ‘안 하는 게 낙’이라고 한다. - 서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좋고 못한 것’이 나타난다.

19. <종교>도 그러하다. 비교해 보면 <현재>와 <미래>와 <결과>를 알게 되고, 비교해 보면 <실상>이 드러나고 차이가 난다. <우상 종교>를 믿으면 ‘그 영’이 엄격히 <사망>으로 가고, <참된 종교>를 믿어야 ‘그 영’이 <천국 쪽 생명권>으로 간다. 그러나 <참된 종교> 안에서도 ‘더 좋은 곳’과 ‘보다 못한 곳’으로 갈려 간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20. 저마다 ‘좋은 집과 환경’을 좋아하며 살듯, <자기 인생>을 ‘좋은 집과 환경’같이 빛나게 만들어서 써라. 최고의 수준은 ‘휴거의 영’으로 만드는 것이다. ‘휴거의 영’은 <최고의 세계 황금성 천국>에 가게 된다. <황금성> 안에서도 ‘자기 개인의 취향에 맞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자기 공적>에 따라서 ‘환경과 집’이 각각 다르다.

21. <자기 노력과 수고>에 따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좌우된다.

22.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최고의 장소’가 있듯이, <천국>에서도 차원마다 ‘최고의 지역’이 있고, ‘최고의 장소’가 있다.

23.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천국’이다.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자기 영>이 구원받고, ‘자기 공적’에 따라서 자기 체질에 맞는 곳’에 가서 영원히 만족하며 살게 된다.

24.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 취향, 체질, 개성’대로 좋아하며 살도록 창조하시어, 모두 한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으셨다.

25. 인간의 ‘자기 개성과 재능’대로 살게 되니, 넓은 땅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하셨다.

26. 체질이 되고 취향이 되면, ‘보다 더 못한 것’인데도 자기에게 맞다고 하며 좋아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고로 ‘자기 체질과 취향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릇된 체질과 취향’은 결국 한계를 맞아서 못 견딘다.

27.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자기 취향과 체질과 마음에 맞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뜻과 목적과 취향’대로 살아야 <영원한 행복>이다.

28.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라도 ‘공기’는 막을 수 없다.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29. 공기 좋은 곳은 자기 ‘생명’과 연관 있으니 다르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30. 도시 사람들이 병에 가장 많이 걸린다. 고로 치명적인 고생을 한다. 공기, 환경, 먹는 음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신앙 세계>에서도 먹는 음식과 같은 ‘말씀’과, 환경과 같은 ‘시대’에 따라서 ‘영’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31. 사람이 게으르면, 자기 생각과 체질이 게으르게 뒤바뀐다. 고로 <게으른 차원>이 ‘자기 취향과 체질’이 되어, 그런 삶이 자기에게는 낙이고 기쁨이다.

32. 사람이 ‘더 이상적인 것’을 좋아해도 가난하니 ‘차원 낮은 단계의 것’을 먹고 입고 ‘차원 낮은 환경과 집’에서 살게 된다. 고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런 체질과 취향’이 되어 살기도 한다. -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33. 그러므로 <새 시대>로 와서 <하나님과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기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더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34. ‘세상에서 육신의 삶의 차원’대로 ‘하늘나라 영의 삶의 위치와 집’이 좌우된다는 것을 진정 잊지 말아라!

<2015년 1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라. - 잊으면 죽는다.

2. 잊으면 ‘그 일’이 죽고, ‘그 시간’이 죽고, ‘영’이 죽기도 하고, ‘육’에게도 해가 되기도 하고 육이 죽기도 한다.

3. 잊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수십 번씩 반복하여 ‘노래’가 되게 해라.

4. 매일 <성자의 음성>을 ‘자기’를 통해 듣고 싶으나. 매일 <성자의 말씀>을 반복하여 네 입으로 말해라. 그러면 성자가 너와 늘 함께하시며 인도하고 지키신다.

5. 성자가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과 심정을 다해 생각하고 말하고 외치면, ‘자기 음성’이 ‘신의 음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자기’도 느끼고, ‘듣는 자들’도 느낀다. 그리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

6. 성자의 말씀을 잊고 성자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성자의 마음이 상하여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대화가 끊어진다.

7. 성자가 하신 말씀을 잊으면 죽는다.

8. ‘죽는다.’ 함은 ‘육신’이 안 죽어도 ‘그 일’이 죽고 ‘그 시간’이 죽는다는 것이다. 성자의 말이 ‘육신에 해당되는 것’인데 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육에 해당되는 것들’이 죽는다.

9. ‘죽는다.’ 함은 ‘끊어진다. 안 된다.’ 함이다.

10. 잊으면 죽는다. - 이 말씀은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삶 속에서 ‘황금’을 얻고 ‘생명’을 얻고 ‘밭에 묻힌 보화’를 얻는 말씀이다. 늘 뇌에 외우고 다녀라.

11. 성자가 떠나셔도 <성자의 말씀>만 잊지 않고 지키면, 성자가 늘 곁에 계시며 지켜 주는 것과 똑같다.

12. 성자가 옆에 계셔도 <성자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안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힘이 없다. 위력이 없다.

13. 성자가 떠나시면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고, <성자의 말씀>을 잊지 말고 전심으로 지켜라. 그러면 걱정이 없다.
14. <성자의 말씀>은 눈에 보일 때나 귀로 들을 때만 기억난다. 고로 <핵심 잠언>은 ‘글’로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반복해서 입 밖으로 말하고 암기해라. 그래야 생활에 부딪혔을 때 즉시 행하게 된다.
15. <성자의 말씀>을 ‘성자’로 여기고 매일 써라.
16. <성자의 말씀>을 매일 써야 ‘육’도 변화되고, ‘영’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된다.
17. <성자의 말씀>을 뇌에 새기고 <성삼위>를 부르는 만큼 ‘능력’이 온다. 그 힘으로 생명도 구원하게 된다.
18. <성자의 말씀의 핵심>은 매일 반복해서 말하고 외워라. 그리고 매일 <삼위일체>를 100~300번은 불러라. 그리함으로 성자와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19. 매일 ‘성자’를 수시로 부르는 자에게는 성자도 수시로 대답해 주신다. 고로 성자가 도적같이 오셔도 그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
20. 매사에 ‘성자와 구원자’를 수시로 부르면 시험을 이기고, 잡생각을 안 하고, 사탄 마귀가 틈을 안 탄다. 그리함으로 휴거되지 못할 자도 휴거된다.
21. 늘 생각 속에 ‘성자와 구원자’를 잊지 않으면, 그 생각이 ‘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22.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롬 10:13).’ 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리도 크다.
23. <성자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성자와 주와 심정 일체 되어서 살아 있는 신앙이 된다. 그리함으로 ‘이성’도 이기고, ‘세상의 각종 유혹’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영’도 신령해진다.
24. 성자와 분체를 부를 때마다 ‘눈과 마음’을 맞대게 되고, 서로 통하면서 살게 된다.

<2015년 1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25. <성자의 말씀>을 잊으면 죽는다.
26. <성자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면 산다.
27. <기도>를 잊으면 죽는다.
28. 기도하면 산다. 진정 기도했는데 신앙이 죽은 자는 한 명도 없다.
29. <성자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잊으면 ‘사랑’이 죽는다. <형제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을 잊으면 ‘자기’도 죽고 ‘형제’도 죽는다. 그러나 사랑하면 산다.
30.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새벽말씀>을 잊으면 ‘영’도 죽고, ‘혼’도 죽고, ‘육신’도 산 신앙에서 죽고 해가 된다.
31. <구원자>라도 ‘자기 실력의 말’을 전해서는 인생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어, 그 말씀을 행하게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의 길, 휴거의 길’을 가게 된다.
32. ‘구원자’만 믿어서는 <구원>도 <휴거>도 안 된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 ‘그’를 구원자로 믿고, ‘그가 전해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신으로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 그러면 욕도, 마음도, 혼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즉시 나와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33. '하나님이 보낸 자'를 벗어나서는 <구원>도 <휴거>도 안 된다.

34. <구원>과 <휴거>는 '구원자를 아는 데'서 시작한다.

35. '구원자'를 믿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해야 <구원>이다.

36. '삼위가 보낸 자'를 버리면 '삼위일체'를 버린 것이 되어 '말씀'을 행해도 그 수고가 헛되다.

37.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만 가져다 행하는 자들은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38. 섭리사에 왔으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성자의 계시>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이런 자는 '가짜 인생'이다. 성자도 주도 이들을 모른다.

39. <혼의 가치성>을 잊으면, '혼'이 죽는다.

40. <혼의 가치성>을 잊지 않고 귀히 보고, 늘 기도하고 행하는 자는 밤마다 꿈 영계에서 '자기 혼'이 활동하면서 욕으로는 체험하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보게 된다.

41. 혼의 차원을 자꾸 높여야 된다.

42. '욕'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혼'은 보고 알 수 있다. '혼'이 그것을 보고 '자기 욕'에게 말해 줘야 <횡재하는 꿈>을 이루고, <비밀>을 알게 되고, <보화>를 얻는다.

43. '혼'을 귀히 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혼'이 급이 낮아서 <혼계>에서 '죽은 생활'을 하게 된다.

44. <혼>은 실제로 '육신이 사고 날 것'을 미리 알고, 영감과 직감으로 <욕>이 느끼게 한다. 그리하여 '욕이 죽을 것'인데 산 자들도 많다.

45. '욕'은 평생 <천국>에 못 가는데 '혼'은 천국에 가서 보고 온다. 그러니 '욕'에게도 <영적 희망>이 생겨서 신앙이 살아나고, 그로 인해 휴거된다.

46. <혼의 세계>에 대한 말씀은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완전히 인봉을 뚫은 말씀이다. 성자의 재림 선물로 해 주신 말씀이다.

47. '혼'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지 말고 써먹어라.

48. '욕'이 '혼'과 늘 대화하고, '혼'을 애인같이 껴안고 사랑하며 살아야 '혼'이 꿈에 '욕이 못 하는 것'을 다 하고 다닌다.

49. 말로는 이해만 시킬 수 있다. 실제로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하며 '혼'을 써 봐야 알게 된다.

50.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성자에게 집중하고 자꾸 기도해야 <혼체>가 활발하게 활동한다.

51.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잊으면 죽는다. '목숨 걸고 생명을 관리하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52. <건강관리>를 잊으면 죽는다.

53. <건강관리>를 잊으면 ‘육신’이 고통받고, 아파서 활동을 못 하니 ‘신앙’까지도 죽이게 되고, ‘육신’도 수명대로 못 살게 된다.

54. <건강관리>를 잊지 않고 매일 관리하면 ‘건강 천국’이 되고, ‘몸’도 귀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웅장하게 만든다.

55. 육신이 건강해야 성자를 제대로 사랑하며 모시고 살 수 있고, 성자가 맡기신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

56. <자녀 관리>를 잊으면 죽는다. ‘경제’도 죽고, ‘신앙’도 죽고, ‘사랑’도 죽고, ‘영’도 죽는다.

57. <생명 관리>를 잊으면 죽는다.

58. <생명 관리>를 잊는 자는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를 물가에 놓고, 잊어버리고 받을 때러 간 것과 같아서 ‘생명’을 죽이게 된다.

59. 처음 신앙을 시작한 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신앙의 어린아이’다. 그런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충격을 주면, 신앙이 죽게 된다.

60. <생명 관리>를 잊으면 ‘힘들게 전도한 생명’을 죽인다.

61. ‘자기의 거친 말과 행동’으로 생명을 죽이면, ‘영적 살인자’가 된다. 진정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62. 생명을 전도해 놓으면 3년 이상을 웃으면서 대하고, 인상 쓰지 말고, 말로 채찍질하지 말고 잘 가르쳐야 된다.

63. 아기의 심장의 강도는 어른과 다르다. 아기는 잘 놀란다. 무서움과 두려움을 잘 탄다. - 이것을 잊으면 ‘전도하여 낳은 어린 생명’을 죽인다.

64. ‘어린 생명의 마음’을 모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죽은 아기 생명’이 매년 1000명 이상 된다.

65. ‘뇌가 성장 중인 아기’와 ‘신앙이 성장 중인 아기 신앙인’은 ‘어른’과 전혀 다르다. 이것을 잊으면 <생명>이 죽는다.

66. <감사>를 잊고 안 하면 ‘신앙’도 죽고, ‘경제’도 죽고, ‘희망하던 것들’이 안 되고 죽게 된다.

67.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 덕’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의 메마른 땅’에서 살고 있다.

68. <감사>를 피하지 말아라. ‘말’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 축복’을 주시면, ‘물질’로도 감사해라. 그리함으로 <축복의 뜻>을 퍼 나가는 것이다.

69. 누구든지 감사하지 않으면 ‘메마른 땅’을 면치 못한다.

70.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71. <찬양과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으면 ‘자기 예술’도 죽고 ‘하나님의 예술 세계’도 죽는다.

72. 땅에서 <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천국에서도 <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73. <전도>를 잊으면 ‘섭리세계’도 죽고, ‘개인 신앙’도 죽고, ‘생명의 뜻’도 죽는다.

74. ‘주’를 제대로 깨닫고 전도해야 <생명의 뜻>을 펴 나간다.

75. 전도를 안 한 자는 ‘생명의 자녀, 생명의 자손’이 없으니 영원히 <신앙의 부모, 신앙의 조상> 소리를 못 듣고, 홀로 살아간다.

76. 전도해야 ‘신앙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진다.

77. <이단 종교>를 잊으면 죽는다. 당한다. 생명을 뺏긴다.

78. <악평자>를 잊으면 죽는다. 당한다.

79.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어디서나, <악평자들>과 <악평자들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고 무서운지 잊으면 죽는다. 그 말은 항상 ‘악’이며 ‘거짓’이다.

80. <사탄>을 잊으면 죽는다. ‘욕’도 손해, ‘혼’도 손해, ‘영’도 손해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아예 <지옥>에 가서 살게 된다.

81. ‘최고로 악한 자들의 영’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사탄>을 잊고 살다가 사탄에게 당하여 ‘악한 자들의 영’과 같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82. <지난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죽는다.

83. <지난날 죽을 고비에서 살려 준 것>과, <각종 어려움과 환난에서 도와준 것>을 잊으면 죽는다.

84. <희망과 꿈>을 잊고 자포자기하면 죽는다.

85. <포기>는 금물이다. 1분 남았어도 해라. 힘이 조금밖에 없어도 해라. 성자와 주와 끝까지다.

<2015년 1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86. <잠깐만!> 이 말씀을 잊으면 죽는다.

87. <안전 운전>을 잊으면 죽는다.

88. <운전할 때 졸면 사고 난다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89.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을 하면 사고 난다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90. <운전할 때 과속하면 사고 난다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91. 자기는 운전을 잘해도 <다른 차가 잘못해서 사고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잊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다.

92. <생각났을 때 기록하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잊어버리니 ‘그 생각’이 죽고, 행하지 못하니 ‘욕’도 ‘영’도 죽은 자 같이 된다.

93. 사명을 하려면 남녀가 화목하게 뭉쳐야 한다며 남녀를 섞고 한 덩이로 일을 시키면서 <남녀를 쪼개는 것>을 잊으면 결국 ‘이성 타락’으로 이어져 각 부서가 죽는다.

94. '화목'이라는 명목으로 남녀를 섞으면, 그 '화목'이 결국 '이성 타락'이 된다.
95. 쪼개지 않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다.
96. 만지면 죽을까 하니, 만지지도 말아라.
97. <쪼개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98. <이성 행위, 자위행위, 만지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99. 설교할 때 제스처, 강약, 정확한 발음, 성자와 주의 심정을 잊고 설교하면, <은혜>가 죽고, <성령의 역사>가 죽고, <성자와 주의 심정>이 죽는다.
100. <성령의 감동>을 잊으면 죽는다.
101.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런데 그 감동을 거부하면 '손해'가 가고, 행하지 못하여 결국 '그 일'이 죽게 된다. 고로 감동됐을 때, 즉시 행해라.
102. <성자 중심>을 잊으면 죽는다.
103. <성자 중심>을 잊으면 '자기 육성의 생각'만 남아서 '육'으로 행하니, '육'도 '영'도 사망권으로 가서 죽는다.
104. <가치>를 잊으면 죽는다.
105. <성자의 가치, 분체의 가치, 섭리의 가치, 말씀의 가치, 자신의 가치>를 잊으면 죽는다.
106. <자기 권위>를 잊고, 자기를 업신여기고 행하면 죽는다.
107. '시대 말씀'을 듣고 '주'를 깨닫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부의 권세, 신부의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를 잊지 말고,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108. 매일 <회개>를 잊으면 '죄인' 되어 죽는다.
109. 특히 <이성 죄>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사랑의 뜻'을 깨뜨리는 행위이니, 절대 안 된다.
110. 생활할 때 쓰레기가 생기듯, 사람이 살다 보면 '각종으로 꺼리는 것'들이 생기니 매일 분체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다.
111. <화목과 화평>을 잊으면 죽는다.
112. <휴거>를 잊으면 죽는다. 휴거되려는 자는 매일 <휴거>를 잊지 않는다.
113. 작든지 크든지 <자기가 맡은 사명의 가치>를 잊으면 죽는다.
114. 주의 일을 안 하고 놀면서 자기 시간만 많이 쓰는 자들은 <사명>에서 죽고 <영광>에서 죽는다.
115. <부지런함>을 잊으면 죽는다.

116. <열심>을 잊으면 죽는다.

117.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으면 죽는다.

118.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으면, '열정'이 식고 '불'이 식어 버린다. 성자도 주도 그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119. <첫사랑>을 잊으면 '육'도 '영'도 죽는다.

120. <첫사랑>을 살리지 않고서 '휴거'되는 자는 없다.

121. 사람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고로 100% 완전하지 않다. 이것을 잊고 사람을 100% 믿으면, 당한다.

122.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잘 잊어버린다. 고로 <성자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항상 써 붙여 놓고 암기하며 지켜라. <성자의 말씀>을 잊고 살다가 '마음'이 죽고 '신앙'이 죽는 자들이 참으로 많다.

123. 잊으면 죽는다. - 이 말씀을 '애인'같이 가슴에 품고 다니며 지켜라. 이 말씀은 '무기'가 되고, '눅성벽'되어 너를 지켜 주고, '복'이 되고, '밭에 묻힌 보화'를 찾게 하고, '성자와 주'가 되어 혼자 있어도 너를 지키고 살린다.

<2015년 1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땅의 운>이 있고, <하늘의 운>이 있다.

2. <하늘의 운>을 타야 된다.

3. 지금은 <성자 시대>이니 '성자의 운'을 타야 된다.

4. <성자의 운>은 '그 육'을 통해서 보내 준다.

5. <성자의 육을 통해서 보내 주는 운>은 '배의 돛'과 같고, '독수리의 날개'와 같고,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6. <자기 노력과 수고>, <자기 재능과 능력>은 '자기 운'이다. 이는 '돛이 없는 배'와 같고, '날개 없는 독수리'와 같고,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핵심>이 없으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7. 하늘의 운을 타라. 성자가 그 육을 통해서 주는 운을 타라. 그러면 <목적한 희망의 장소>로 능히 가게 된다.

8. <돛이 달린 배>는 '바람'으로 가니, 힘들지 않게 파도를 헤치고 간다. <돛 없이 노 젓는 배>는 '손과 팔'로 저어서 가야 하니, 힘들어서 머나먼 항해를 할 수 없고, 파도에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9. <손으로 노를 젓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과 재능'이고, <돛을 달고 가는 것>은 '성자와 땅의 구원자의 운'이다.

10. <주의 돛>을 달지 않고 손으로 노 저어 가는 자는 힘들게 고생하며 '멀고 먼 365일의 신앙의 항해, 삶의 항해'를 해야 된다. 고로 힘들어서 '1년의 항해'를 다 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한다.

11. <주의 돛>을 달고 가는 자는 쉽게 '365일의 신앙의 항해, 삶의 항해'를 하여 목적지까지 가고, 그 힘으로 '자기 목적과 뜻'도 이룬다.

12. 사람들은 편하게 살려고 각종으로 연구하며 각종 것들을 만들어 내지만, 힘이 안 들고 고생을 덜 하고 편하게 쉽게 살기는 정말로 어렵다.

13.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 ‘자기라는 배’에 ‘성자와 그 보낸 자의 돛’을 달아라. 그것이 ‘인생의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지 않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길이다.

14. 중심에 ‘성자와 그 욕’을 모시고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배에 돛을 다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 휴거의 항해를 쉽게 할 수 있다.

15. <주의 돛>을 달아라. 이것이 올해 꿈 대신 주는 횡재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늘의 운을 타는 것’이며 ‘횡재하는 것’이며, ‘발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다.

16. <발에 묻힌 보화>를 얻으려 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발’을 사라. 그래야 ‘그 속에 묻힌 보화’도 자기 것이 된다.

17. <발>은 무엇이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 하늘 뜻을 이루려고 쓰는 자’다. <발에 묻힌 보화>는 무엇이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18.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발>을 사라. 말은 ‘보낸 자를 통해 선포되는 시대 말씀’을 듣고, 그를 ‘구원자’로 깨닫고, 그를 믿고 그와 일체 되라는 말이다. /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그 속에 묻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캐내게 되고, 휴거되어 <영원한 천국 황금성>을 상속받게 되고,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다.

19. <자기>는 ‘배’다. <성자의 욕>은 ‘돛’이다. <돛>은 ‘돛단배의 날개’와 같다. <돛>을 달아야 ‘세상 바다’에서 날면서 산다.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돛>을 달아라. 그 돛은 ‘주의 돛’이다. ‘주의 돛’을 다는 자는 하늘의 운을 탄 자다. 고로 인생을 편히 항해한다.

21. <돛>은 ‘主’ 모양으로 생겼다. ‘主(주)’가 누구냐.

22. 이 급절한 시대에 ‘돛’ 없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머나먼 인생 길, 휴거 길>을 못 간다.

23. 항상 ‘개인 부족으로 인한 환난’이 있다. 고로 모두가 꼭 ‘돛’을 달고 출발해야 된다. 그냥 ‘노’를 저어서 가다가는 얼마 못 가고 만다.

24. 힘이 센 장사라도 ‘돛’ 없이 ‘노’를 젓고 살면 힘이 없어서 얼마 못 간다.

25. 주(主)는 ‘생명의 돛’이다. <주의 돛>을 달고서 ‘전도’도 하고 ‘각종 사명’도 해야 된다.

26. 주(主)는 ‘희망의 돛’이다. <주의 돛>을 달아야 ‘경제, 건강, 각종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면서 보람차게 산다.

27. 주(主)는 ‘진리의 돛’이다. <주의 돛>을 달지 않고 가면, <비진리의 돛>을 달고 ‘사망의 인생 바다’로 간다.

28. 주(主)는 ‘사랑의 돛’이다. <주의 돛>을 달아야 사랑으로 휴거된다.

29. 주(主)는 ‘휴거의 돛’이다. <주의 돛>을 달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욕’도 ‘혼’도 ‘영’도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편히 가면서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가며 <휴거>를 이룬다.

30.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주의 돛을 뺀 자’다. 고로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싸우며 고생하며 가야 된다. 가다 보면, 파도에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31. ‘주(主)’라는 뜻을 ‘뇌’에 깊이 꽂아라.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깊이 꽂아라. ‘생활’에 깊이 꽂아라. 그래야 ‘성자’와도 일체 되고, 편히 전진하며 승리한다.
32. 오직 ‘주의 뜻’만 달아라. 나머지는 ‘뜻을 쫓고 멘 줄들’이다.
33. <자기>라는 배에 <주>라는 뜻을 달아야 튼튼하고, 화평과 사랑이 넘쳐 서로 하나가 된다. 그로 인해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 <교회>라는 배에 ‘많은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된다.
34. <구원자>는 지구 세상의 73억 명을 태운 ‘지구라는 배의 뜻’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뜻>을 가지고 ‘지구’를 조종하신다.
35. <뜻>은 ‘세상 바다에 묻힌 보화’이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감춰진 인생 보화’를 찾게 된다.
36.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주(主)라는 뜻’을 단 자만 <인생>을 쉽게 편히 살고, <휴거>도 힘들지 않게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모시고 <천국 황금성>으로 가서 살게 된다.
37. ‘휴거된 영들’은 육신이 지상에서 사는 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황금성>을 드나든다.
38. <휴거 잔치>는 세상 혼인 잔치처럼 ‘하루’가 아니고 ‘한 기간’이라서, ‘한 기간’을 두고 <황금성>에서 ‘휴거 잔치’를 한다.
39. (성자) 뜻을 달아라! <뜻>은 ‘내 육’이다. <배>는 ‘너희 각자’다. 나 성자는 내 육으로 말미암아 주기도 하고 뺨기도 한다. 이제 내가 손을 놓았으니, ‘내 육의 손’을 잡아라.
40. (성자) <뜻>은 ‘배의 힘’이다. <나 성자>와 <나의 육>은 ‘너희의 뜻’으로서 너희의 ‘힘과 능력’이며 ‘운’이다. 뜻을 달아라! 높이 달아라! 그래야 세상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목적인 뜻을 이룬다.
41. (성자) <뜻을 달지 않은 배>는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이며,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자다. 너의 중심에 ‘뜻’을 달아라! 그래야 세상 파도와 자기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한다.
42. (성자) 이 시대의 지혜자가 누구냐? ‘뜻’이 무엇인지 찾고 단 자다.
43. (성자) <뜻 없는 신부>은 파도치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또 이성애에 빠지고 각종 유혹에 빠져 부끄러운 행위만 하게 된다.
44. (성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뜻’을 사라. 그래야 ‘나 성자’와도 일체 되어 거뜰히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된다.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45.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만큼 사탄이 친다. 고로 ‘할 것’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냥은 힘이 없어서 못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서 못 하고, 유혹 때문에 못 한다. 그러니 꼭 ‘자기라는 배’에 ‘뜻’을 달고 행해라.
46. <뜻>은 ‘성자의 육’이다. ‘성자의 분체’다. ‘성자의 구원의 심부름꾼’이다.
47. 이제 성자가 떠나신다. 고로 ‘그 육, 분체, 심부름꾼’을 스마트폰 쥐듯 꼭 쥐고 다녀라. 그러면 늘 성자와 통한다.

48. <주의 뜻>을 달면, ‘주’가 방향을 잡고 ‘자기라는 배’를 몰고 간다. 그러나 자기가 ‘노’를 저으면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고, 세상 바다로 휩쓸려 간다.
49. <주의 뜻>을 달아라. 그러면 삼위일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능력과 권세’로 힘껏 역사하여 이끌고 가신다.
50. <구원자>를 알아야 된다. <구원자>를 아는 만큼 구원받고, 휴거되고, 형통하고, 행하여 얻게 된다.
51. <구원자>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결되어 ‘휴거 차원’으로 올라간다.
52. <구원자>를 믿기만 하지 말고 따라라.
53. 생활 속에서 늘 <구원자>를 생각해라. 찾아라. 그러면 100% 통한다. 이것이 자기가 전화를 걸어 연결되는 것과 같다.
54. 생활 속에서 늘 <구원자>를 생각하고, 찾고, 부르는 자는 <주의 뜻>을 ‘뇌’에 꽂고 ‘생각’에 꽂은 자다.
55. <땅의 핵>인 ‘보낸 자의 뜻’을 달아야 <하늘의 핵>인 ‘성자의 뜻’도 달게 된다.
56. <핵>은 ‘핵폭탄’과 같다. <바다의 배의 핵>은 ‘뜻’이다. 고로 ‘주의 뜻’을 다는 자는 핵폭탄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다.
57. <핵>을 알고 <핵>과 일체 되어라. 그러면 승리하고 성공한다.
58.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핵심자, 주’만 찾고 믿으면 이긴다.
59. <이 시대 하늘의 운>은 ‘구원자’다. 그는 ‘인생의 뜻’이다. ‘생명의 뜻’이다. 그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뜻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꽂고, <인생의 항해, 섭리의 항해, 휴거의 항해>를 해라. 그러면 <인생의 보화>를 찾게 되고, <인생의 운>을 타게 되고, 휴거되어 <영원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60. <뜻>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
61. 공중의 왕인 <독수리>는 ‘무기’를 열다섯 개나 지니고 다닌다. 철창 같은 발톱 여덟 개, 철창 같은 부리 한 개, 철몽둥이 같은 좌우의 날개 두 개, 레이더와 같은 눈 두 개, 초인 같은 힘, 그리고 시속 180km로 빠르게 나는 속도가 무기다.
62.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리고 주는 ‘독수리와 같은 뜻’이다. <자기>라는 ‘배’에 ‘독수리와 같은 삼위일체와 주의 뜻’을 달면,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 섭리의 항해, 휴거의 항해, 2015년의 항해는 문제없다.

<2015년 1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맛’으로 산다.
2. 사람을 존재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도 공급받고, 온몸으로 기쁨도 느낀다.
3. 배고파도 음식이 맛없으면 마음이 상한다.
4. 집 앞에 음식점이 있어도 맛없으면 안 간다. 그러나 음식이 맛있으면 차를 타고 먼 길까지 찾아간다. 어떤 사람은 휴일에 시간을 내서 왕복 1000리나 떨어져 있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먹고 온다.

5. 음식은 ‘맛’이 생명이다. 고로 맛있는 음식은 안 좋아하고, 가끔씩도 안 먹는다.
6.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사는데 ‘전남 지역’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먹고 싶을 때마다 차를 타고 찾아간다고 했다.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하니 왕복 700리나 된다고 했다. 기름 값이 많이 나가지 않냐고 하니, 그런 것 다 따지면 평생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먹어본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야겠다고 깨닫고, 성자에게 <맛있는 말씀의 자료>를 받고, <말씀 요리>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하게 됐다. <말씀>이 먹음직해야 듣고서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7. <하늘의 말씀 음식>을 먹으면 힘과 능력과 희망이 솟고, 그 <말씀>을 행하면 초인 같은 힘을 발하게 된다.
8. 하늘 섭리를 떠난 자는 같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안 주신다.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여 더 죄를 짓게 된다.
9. 음식은 ‘맛’이 생명이다. <맛>으로 ‘기쁨’과 ‘힘’이 조성되고, ‘영양가’도 발생하게 된다. 요리하기에 따라서 ‘영양가’가 파괴되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0. 음식은 ‘맛’으로 살아간다. 인생도 ‘맛’으로 살아간다. <인생의 맛의 핵>은 ‘생각’이다. <생각>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11. <생각>을 악하게 요리하면 ‘악한 맛’이 나고, <생각>이 성자를 향해 있어 하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생각>을 선하게 요리하면 ‘선한 맛’이 그 차원대로 나게 된다.
12.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안 먹으면 ‘맛’을 못 느낀다. 이와 같이 <생각>도 가만히 두면 ‘맛’을 못 느낀다.
13. <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서 ‘수백 가지의 음식’을 만들듯이, <생각>을 가지고서도 자기 차원대로 ‘수백 가지 생각’을 만든다. <생각>을 맛있게 만들려면, ‘삼위의 구상’대로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행할 때 삼위와 일체되어 행해야 된다.
14. 성경의 말씀을 보아라. 선지자들이 생각하고 행한 것, 사사들이 생각하고 행한 것, 중심인물이 생각하고 행한 것, 사도들이 생각하고 행한 것, 메시아가 생각하고 행한 것을 보아라.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고로 그 차원의 생각을 받아서 믿고 행해라. 믿고 행하는 대로 ‘운명’이 좌우된다.
15. 인생은 ‘생각하는 맛, 행하는 맛’으로 살아간다.
16. 자기 수준대로 생각해 봤자, 자기 생각대로 행해 봤자, ‘육신만 잠깐’ 누리고 끝난다.
17. <악인들이 만든 음식>은 ‘돈’만 생각하고 만든 ‘불량 음식’이다. ‘반 썩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 그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고 병에 걸려서 먹는 즉시 생명에게 해를 준다.
18. <악인들의 음식 재료>는 결국 모두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알거지가 된다.
19. 하나님은 <구약 때>는 ‘종에 해당되는 율법 자료’를 주시고, ‘종급 요리’를 하게 하셨다. 고로 ‘종 맛’이 난다.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자녀에 해당되는 신약 말씀 자료’를 주시고, ‘자녀급 요리’를 하게 하셨다. 고로 ‘자녀 맛’이 난다. <성약 때>는 이 시대 보낸 자에게 ‘신부 말씀 자료’를 주어 ‘신부’가 되도록 요리하게 하신다. 그러니 ‘사랑 맛’이다.
20.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 끝’의 목적>은 인간들의 육과 영을 ‘신부’로 만들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그 영광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21. 사랑 자료, 사랑 요리가 최고다. <사랑의 자료>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육도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요리하여 만들기다.

22. 그 생각과 행위가 맞없고 사랑의 맛이 안 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멀리하신다.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23. 생활 속에서 항상 ‘신앙적 생각과 행실의 맛’이 나야 된다. ‘육적인 생각과 행실’은 ‘육’에 속해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진다. ‘하늘에 속한 생각과 행위’만이 ‘자기 영’을 변화시켜 영원히 유익이 되게 한다.

24. <사람의 육>은 ‘차’와 같고, <생각>은 ‘운전대’와 같다. 운전대를 쥐고 운전하는 대로 차가 가듯이, 생각하는 대로 몸이 가진다. 운전대를 잘못 돌리면 중앙선을 넘어 바로 사고 나듯이, 생각의 운전대를 잘못 돌리면 사고 난다.

25.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구원’도 못 받고 ‘휴거’도 못 되고 ‘천국’에도 못 간다. <삼위의 생각, 메시아의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구원’받고 ‘휴거’된다.

26. 인간은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된다. 그러나 좋게 생각하고 행하면 좋게 되고, 나쁘게 생각하고 행하면 나쁘게 된다. 그 생각과 행위가 좋으나 나쁘나, 모두 자기에게 돌아간다. - 고로 좋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다. 삼위와 메시아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다.

27. <생각의 결과>를 알고 생각해라. <행실의 결과>를 알고 행해라.

28. <생각>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 ‘얼굴’이 바뀌면 ‘몸’은 그대로 있어도 ‘얼굴이 바뀐 그 사람’으로 인식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인식되고 대우받는다.

29. ‘가면, 탈’을 씌운 대로 그렇게 인식해 버린다.

30.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 혹은 성령님,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탈’을 쓰고 나타나서 행한다. 말도 그렇게 꾸며서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곳으로 가면 ‘탈’이 나고 끝난다.

31. <생각>을 잘못하면, 평생 그 생각으로 살다가 죽는다.

32. <사람의 지체>는 ‘과수원의 과일’같이 다 아름답다. 그러나 과일마다 ‘영양과 질’이 다르다. 이와 같이 사람도 다 아름다우나, ‘핵이 되는 생각’이 다르다. 악인도 선인도 다 ‘지체’를 갖추고 살지만, ‘생각’이 다르니 인생을 달리 살아간다. 그 <생각>대로 ‘육’도 살아가고 ‘영’도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게 된다. <몸>이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문제다.

33.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제일 큰 자’다.

34. 명예, 권세, 돈, 재물, 이성, 예술, 학문, 종교 세계에서 알아주는 큰 자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지 않은 채 사는 자’는 모두 ‘무가치’다. 영원한 가치는 없고, 세상에서 잠깐 달리 볼 뿐이다.

35. 한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경제로 휘날리던 자들이 죽어서 어떻게 됐는지 영계에 가서 보니, 그 영이 거지같이 다니면서 청소하고 있었다. 어떤 영은 고통의 세계에서 참혹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영계는 딴 세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죽으면 ‘육체’ 썩듯이 썩고, <영에 속한 것, 삼위께 속한 것>만 영원히 남아 ‘영’이 받고 누리며 산다.

36.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은 ‘그 영’이 그대로 <하나님 없는 세계>로 가서 갇은 고통을 받고 산다. 그것

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사상을 이어받으며 산다. 역시 인원수에 상관없이 그 세계로 간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누구나 '바위에 부딪힌 달걀'같이 되듯, 누구든지 우상을 숭배하면 '바위에 부딪힌 달걀'같이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 <인간이 만든 법>대로 되는 줄 알고 무지하게 살아간다.

37. '생각'을 잘못해서 <사망길>로 간 것이다.

38. '무지'가 자기를 <사망길>로 가게 한다.

39.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의 보화다. 생명길이다.

40. '생각의 요리'를 잘못 하면 <지옥>으로 간다.

41. 사람들은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어도 선하게 살았으면 <좋은 세상>에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멸망길>이 기다리고 있다. '육'이 죽기 전에도 '영'이 <사망권>에서 살고, 육이 죽으면 '그 영'은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42. '자기 삶'이 '자기를 심판'한 것이다.

43. 세상에서 선하게 산 것은 세상에서 '육'이 받는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선(善)은 영의 세계의 '영'에게는 상관이 없다.

44. 하나님을 안 믿은 자체가 '불법'이다.

45.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었어도 시대별로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 구약의 법대로 산 자들, 신약의 법대로 산 자들, 성약의 법대로 산 자들은 각각 '구원의 차원'도 다르고, '대우'도 다르고, '영이 사는 위치'도 다르다.

46. <성약 때 준 말씀>을 듣고 지켜야 '그 차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차원에 맞는 황금성'으로 가게 하신다.

47. 결국 '삼위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삼위의 뜻'을 몸부림쳐 이룬 자들의 영만 <최고 위치의 천국>에 가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48. '삼위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을 생각할 수 없다. 자기가 산 차원대로 <악 쪽 영계>나 <선 쪽 영계>로 간다.

49. <세상>에서도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대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되고, '장사'를 하면 장사가 된다. '자기 행위'로 '현실이 건설'된다. / <영의 세계 천국>도 '자기 행위'로 '자기 영이 변화'되면서 '자기 영의 집이 건축'된다.

50. <하나님의 온전한 시대 말씀>으로 '자기 영'을 형성시키고 '자기 영의 집'을 건축하게 되어 있다.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다.

<2015년 1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51. 꿈에 <혼계>에서 '혼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다는 못 봐도 자기가 어느 차원에서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

52. 같이 다녀도 '생각의 차원'이 다르면 '주관'이 다르니 말도 안 통하고, 보이는 것도 못 본다.

53. <자기 생각>이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있으면, 영계에서 '자기 혼이 거하는 환경'도 다르고, '성자가 혼에게 교훈하는 것'도 다르고, '혼이 깨닫는 것'도 다르다.

54. 성자는 ‘자기 혼의 상태’를 보여 주시며, ‘자기 생각과 행위’를 깨닫게 해 주신다.
55. <잘못된 이단의 이론>이 한 번 ‘자기 생각’에 들어오면, 뇌에서 잘 안 빠진다.
56. <이단>은 이단을 못 벗어나고 ‘이단의 세계’로 간다.
57. <악평자>도 악을 못 벗어나고 ‘악한 세계’로 간다.
58. 들으면 뇌에 박힌다. 시인하면 뇌에 박힌다. 고로 부정해라. 그러면 뇌에 안 박힌다.
59. 악한 자들은 자신의 이론이 맞는 것같이 만들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의 이론 자체>를 불신하신다.
60. 오직 ‘하나님께서 시대의 뜻을 펴시는 곳’만 인정하신다. 나머지는 모순투성이대로 믿다가 심판받고 끝나고, 구시대에는 구시대 주관권으로 끝난다.
61. 지구에서 살면 ‘지구의 주관’을 받는다. 영으로 영계에 가면 ‘지구의 주관’이 필요 없다.
62. 무지로 ‘생각’을 잘못 하면 <사망>이다.
63. 사람들은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자기 취향대로 살아가지만, ‘오직 시대 보낸 자 한 명’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64. 사람이 <먹는 것>이 기쁨인데, 안 먹으면 못 느낀다.
65.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기쁨인데, 생각하지 않고 무의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온종일 아무것도 못 느낀다. 마치 잠을 잔 것과 같다.
66. 생각하지 않으면 뇌가 굳어서 ‘인생의 맛’을 잃게 되고, ‘굳은 체질’이 되어 그대로 살게 된다.
67. ‘사랑하는 자’를 앞에 두고도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을 못 느낀다.
68. 같이 살아도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심정’이 안 맞고, ‘사고’가 안 맞고, ‘하는 일’이 안 맞아서 결국 싫어서 헤어지게 된다.
69. 생각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해라. <구원자>를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그래야 ‘한계를 초월한 희망’이 오고 ‘기쁨’이 솟는다.
70. 생각은 할수록 무한하게 생각이 떠오른다.
71. 나쁜 생각도, 악한 생각도 할수록 무한하게 떠오른다.
72. 좋은 생각도, 좋은 구상도, 성자 생각도, 구원자 생각도 할수록 무한하게 떠오른다.
73. 믿기만 하면 ‘맛’을 못 느낀다. 매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성자를, 구원자를 부르고 찾고 생각해라. 그리고 삼위와 주의 뜻대로 살아라. 그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영’이 형성되고 ‘천국의 집’이 건축된다.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실재다.

1.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타인이 볼 때는 ‘말과 행실’이 다 보인다.
2.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체질’이 되면,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행해도 잘못 생각하고 행하는지 모른다.
3. 성자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성자의 말씀을 ‘절대 지키고 행하는 자’만 변화된다.
4. 성자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말과 행실을 불의하게 한다.
5. 성자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니, ‘안 지키는 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6. 말씀을 안 지키면 ‘명하신 하나님과 성자에게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불의를 행한 죄’를 짓게 된다.
7. 말씀을 지킨 자만 ‘육과 혼과 영’이 변화되고, ‘혼과 영’이 천국 쪽으로 가고, ‘육’도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8. 말씀을 지킨 자만 ‘성자의 참신부’가 되어서, <사랑의 세계 천국>을 다 차지한다.
9. 거친 길을 다듬어 아스팔트를 닦듯이, <자기 인격>을 잘 닦아야 된다.
10. 밭을 잘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듯이, <자기 인격>을 닦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갈밭에 씨 뿌리는 격’이다.
11.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도, <자기 인격>대로 받아들이고 행하게 된다.
12. 사명을 받은 자라도 <인격>이 안 닦여 있으면, 단상에서나 사명지에서 외치기는 하는데, ‘자기를 못 닦은 차원’에서만 한다. 이런 자는 외치는 것에서 끝나고, 외치는 것이 끝나면 다시 ‘외롭고 가난한 달동네 움막’으로 가서 산다.
13. <육신>은 누가 봐도 번쩍거리며 우아하다. 그런데 ‘돌이 많이 섞인 밥’과 같이 <말과 행동>은 ‘마음에 바늘 꽃듯’한다. 상대가 그에게 찔림을 받고 성자와 주께 고한다. 성자와 주는 ‘그 가시’를 피하라고 전해 준다. 어느 날 주인은 그 밭에 씨를 뿌리러 와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가시 밭’이라는 것을 알고 불사른다.
14. 가시 같은 마음, 말, 행실을 하는 자는 사람들이 피한다. ‘외로운 가시’는 광야에서 혼자 살듯 외롭게 산다.
15. 지도자들이 생명들을 관리하다가 상대가 말을 안 들으면, 그때 ‘가시의 말’과 ‘가시의 행동’으로 생명을 찌른다. 그러면 그 생명이 속상하니 ‘손’으로 ‘눈’을 찌르고 사라진다.
16. ‘가시 같은 말과 행실’로 상대를 찌르고도 의연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 성자는 그 대가로 ‘줄 것’을 안 주신다.
17. 가시 같은 지도자들이 많다. 선인장 가시, 엉겅퀴 가시를 가지고 상대의 가슴을 찌르면, 상대는 그 말을 듣고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고 나가 버린다.
18. 가시로 상대를 찌르는 폭력자들은 그 면에서는 ‘휴거 점수’를 못 받아서 억울하게 된다.
19. <휴거>는 300선이 넘었어도 계속 차원을 높여서 600선, 700선 이상 가야 된다.
20. 너는 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성을 꺾는 데’ 사용하느냐. 네게 ‘이성으로 찔림’을 받고 분해서 하늘 앞에 고한다.

21. 사람들은 ‘거친 말과 행동의 가시’로 <자기 구원자>도 찌르고, <성자>도 찌르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찌르고, <형제들>도 찌른다. 이에 하나님은 ‘사막’에 가서 살라고 하며 ‘사막의 선인장들 속’에 넣어 버린다. 어서 ‘그 가시 같은 말과 행실’을 버려라.
22. 어떤 자는 하늘을 원망하며 가시로 찢려 대다가, 행한 대로 쉬지 않는 고통을 받으며 산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섭리사>로 와서 하늘 앞에 고하며 회개한다.
23. ‘말의 가시’를 빼라.
24. ‘말과 행동의 가시’를 가지고 상대를 찌르는 자들은 모두 <휴거 200선 밑>에 있다.
25. <휴거 300선이 넘은 자>는 ‘말과 행동의 가시’는 없다. 복숭아도 다 익은 것은 ‘털’이 사라진다. 배도 다 익으면 ‘가시’가 없어진다.
26. 악평 가시, 불만 가시, 욕 가시, 불의한 행실 가시들은 마치 ‘날카로운 닭 뼈’와 같고 ‘생선 가시’와 같다. 고로 누구나 줘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해를 준다. 고로 하지 말아라.
27. 섭리사에 인격을 못 고치고 ‘독한 가시를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있다. 고로 보는 대로 하늘 앞에 고하니, 모두 ‘가시’를 불사르자.
28. <가시>는 마치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배설을 하는 자와 같아서 ‘냄새’로 알고, ‘근거’로 안다.
29. 성경에 예수님께 ‘가시 면류관’을 찌르며 ‘가시 같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의 영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가시 철침 위’에서 살고 있다.
30. ‘가시 달린 영’은 <천국 문>에 들어가다가 걸린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나. ‘가시로 찢림을 받은 자들’이 지키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과 성자에게 다 고하니, 걸려서 다른 세계로 간다.
31. 가시 과일, 가시 인생 조심해라. 목구멍에 가시가 걸려서 안 빠진다.
32. 가시 목사, 가시 지도자들이 섭리세계에 다 소문이 났는데도, 자기만 모르고 계속 ‘가시’같이 행한다. 그로 인해 결국 고통을 받는다.
33. 자기는 가시로 상대를 수십 번, 수백 번이나 찢려 놓고도 자기는 안 아프니 시원해한다.
34. 가시에 찢림을 받은 자만 아프다.
35. 분노하는 자, 혈기 내는 자, 혀를 금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36. 지도자는 자기는 ‘위’에 있으니, 생명들을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자기 성격, 자기 인격’대로 말한다.
37.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보면, ‘혀’까지 ‘마음’까지 다듬지 못해서 나간 것이다. 섭리사 안에 있을 때는 암암리에 하다가, 섭리사를 나가면 그 ‘가시 같은 혀’를 가지고 그대로 악평하며 행한다. 결국 행한 대로 배로 받게 된다.
38. 저마다 ‘불의의 가시들’이 있으니, 다듬어라. 빼라. 다듬고 뺀 자들끼리만 통한다.
39. ‘가시 없는 자’는 상대의 가시로 찢림을 받아도 자기는 가시가 없어서 못 찌르니 고통은 받지만, 참고 견디면 <축복>이다.

40. ‘가시들’로 인해서 하늘이 귀히 기르는 자들이 고통받는다.
41. 의와 불의, 선과 악...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42. 지능이 낮으면 ‘가시’가 돌아난다.
43. 은혜의 말이다. 은혜의 행실이다. 결실의 열매다. 결국 행한 자가 주인 되어 ‘결실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44. 자기는 상대를 ‘가시’로 찌르고도 합리화하여 자기는 안 그런 척한다. 그러나 당한 자는 용납을 안 한다. 지도자와 싸울 수밖에 없으니 교회를 옮기거나 섭리사를 나간다.
45. 보이는 지도자를 중심하니, ‘그 지도자의 본심’을 깨달아 ‘그가 자신을 구원할 자’가 아님을 알게 하신다.
46. 눈에 보이는 지도자만 중심하면, <구원>도 <휴거>도 안 된다. 안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자기를 구원하는 자를 절대 중심해야 그의 몸이 되어 <구원>도 <휴거>도 빨리 된다.
47. 보이는 지도자는 ‘자기와 같은 형제’다. ‘주의 심부름꾼’이다.
48. 암암리에 ‘주권’을 행하면, <사명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제야 깨닫지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정한 기간까지 형벌 기간을 보내야 된다.
49. <자기 말의 가시>와 <행동의 가시>를 모두 빼내라. <자기 인격>을 다듬어라. 그래야 그 위에 성자도 주도 역사하신다.

<2015년 2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50. <가짜>와 <진짜>는 결국 다 드러난다.
50. 정말 성자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변화된 자>다.
51. 성자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행하지 않는 자’는 <가짜>다.
52. <가짜 금>은 시간이 갈수록 벗겨져서 ‘가짜라는 것’이 들통 난다.
53. <속>을 보면 아니, 처음부터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아라.
54. 과일이 썩었는지 싱싱한지 즉시 벗겨 보아라. ‘껍데기’는 싱싱해 보여도 ‘속’은 썩은 것이 있다. <인생>도 그러하다.
55. 화장하면 ‘자기 형상’을 변장할 수 있다. 안 속으려면, 현장에서 얼굴을 씻겨 보아라. 눈만 멀지 않았으면, 다 알 수 있다.
56. ‘교회의 가시, 부서의 가시들’은 성자께서 그 명단을 <뇌의 수첩>에 다 기록하여 알고 계신다.
57. 교회마다, 부서마다 ‘가시’가 있다. 뇌와 생각과 행실이 그렇게 체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기 가시’를 사용한다. 그러니 모두 피한다.
58.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더 큰소리치는 사람이 있다. 교회에서나 섭리사 안에서 혈기 내며 소리를 지른 자

들은 회개하고 올바르게 행할 때까지는 <다음 차원>으로 못 가고, 계속 <그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혈기 내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천사가 하나님께 다 보고하여 ‘그로 인해 받는 대가’가 크다.

59. <말과 행실>은 ‘기본적인 인격’이다.

60. 말을 함부로 하여 마음을 찌르는 자들을 보면, 그때 느끼는 것이 있다. ‘저 사람은 사탄의 주관을 받네. 무서운 사람이다.’ 하며 영감이 온다. 그것이 답이니, 그리 보고 참고 피해라.

61. <글>로 ‘가시 같은 말’을 써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자가 있다. 이들은 그 글을 쓴 대로 ‘아주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죽음의 선고를 받고 막 사는 자들’이다. ‘생명길을 탈선하여 영원히 기회를 잃은 자들’이다. 그런 글을 보면, 바로 저주로 심판하면서 외면해라. 그래야 ‘의로운 하늘 편’이 된다. 그 나쁜 글을 보고 인정하면, 자기도 그와 같이 ‘악한 자’가 되어 바로 ‘악한 주관권’에 거하게 된다. 그 글을 불신하면, 자기 뇌에 입력되지 않으니 ‘악의 함정’임을 깨닫게 된다. 나쁜 글을 불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시의 함정>을 알리는 것은 ‘의’가 된다.

62. 성자의 뜻대로, 주 뜻대로 하는 자가 <실력자>이며 <능력자>다.

63. 성자와 분체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성자도 주도 인정하지 않는다.

64.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사는 한 나라의 왕’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소년’을 더 크게 보신다.

65. 성자의 눈으로 보아라. 주의 눈으로 보아라. 자기에게는 ‘귀한 자’로 안 보여도, 성자와 주께는 ‘귀한 자’다.

66. 사람들이 선생을 그리도 무시하고 천대했으나, 하나님과 성자는 그들을 안 세우고 선생을 세워서 ‘뜻’을 펴셨다.

67. 사람을 대할 때는 <사명>만 보고 대하지 말아라. 그 <사명>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기도 하니, <행위>를 보고 대해라.

68. 각종으로 ‘자기 모순’을 빼내고 다듬기다.

69. 자기 눈에 들어간 가시를 빼내듯, ‘자기 모순의 가시’를 빼내라. 그 가시로 ‘상대’를 찌르고, ‘주’를 찌르고, ‘성자’를 찌르면 그리도 아프다. 고로 멀리한다.

70. <얼굴>은 ‘미인, 미남’인데, <말과 행실>은 ‘독바늘’ 같다.

71. 어떤 사람은 눈에 가시가 있는데, 그 눈을 부릅뜨면서 화를 내니 ‘검은 눈동자’는 안 보이고 ‘흰 눈동자’만 보였다. 눈도 큰 데다가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니 더 무서웠다. 정말 ‘무서운 가시’다.

72. <가시 인생들>을 영계에서 보면, 말할 때 실제로 <가시>가 바늘같이 날아가 ‘상대의 마음’에 꽂히고, <가시>가 ‘그 몸’에 잔뜩 나 있다. 예쁜 살에 털이 나듯, 밤송이같이 그 몸에 가시가 나 있다. 섬뜩한 모습이었다.

73. <가시 인생들>을 영계에서 보니, ‘가시 밥’을 먹고 목에 걸려서 눈을 부릅뜨고 고통을 받고 있었다. 육계에서 <자기 육>이 상대에게 ‘가시 같은 말과 행동’을 하니, 영계에서 <그 혼과 영>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74. ‘가시에 찔린 자’가 주께 고하니 치료해 주고 갑옷을 입혀 줬다. 고로 매일 가시에 찔려도 괜찮았다. 그러니 ‘가시로 찌르는 자’가 화가 나서 괴로워했다.

75. ‘가시 같은 말’이 자기에게 날아오면 마음에 ‘철판’을 깔고 대해라. 그러면 가시가 부러져서 못 찌른다.

76. 누가 <가시 같은 말>을 하면 ‘귀’를 막고, <가시 같은 행동>을 하면 ‘눈’을 감고 스쳐 보내라. 그러면 상처 안 받

고 통과한다.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자) 너는 지구 세상의 '뇌'가 되고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게 구해라. <지구 세상의 죄>와 <섭리의 죄>를 대신 회개해라.
2.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으니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 지은 죄>는 기억이 안 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안 나니 <오래전에 지은 죄>는 회개하지 못한다. 고로 '아는 자'가 대신 기도해 주어라.
3. <세상에서 최고로 큰일>은 '육신이 죽는 데서 살려 주는 것'이며,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일'이다. 이것을 행한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큰 공적자'이며 '영원한 영광을 받을 자'다.
4. 몰라서 못 하니,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해 주어라. 그러면 <구원>이다.
5. <구원>은 알면 쉽고, 모르면 너무 어렵다.
6. <구원자>와 <그 시대 사람들>은 '한 운명'이다. 고로 <구원자>가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구원자>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지옥 고통을 받게 된다.
7. 무조건 기도해서 '시대의 죄와 민족의 죄와 섭리의 죄'를 회개해야 <구원자> 역시 '죄'에서 벗어난다.
8. <구원자>가 시대의 죄와 민족의 죄와 섭리의 죄를 대신하였으니, 용서만 해 주면 모두 '죄'에서 벗어난다.
9. <사탄>은 '죄지은 자들'과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그 '죄'를 가지고 힐문하며 괴롭히고 형벌한다.
10. <주>가 '시대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대신 '대가'를 치렀으니, 그것으로 '하늘 앞에 지은 죄'는 모두 용서받았다.
11. 만일 <주>가 만민을 위해 '대가'를 치러 놓고서 용서를 안 하면, 그들의 죄가 <구원자>에게 와서 '그 짓값'을 받게 된다.
12. 고로 만민을 위해 대신 기도하고, 회개하며, 조건을 세움으로 '온 세상'과 '섭리인들'과 '원수'와 '악평자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리함으로 모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늘 편>이 대신해서 회개하며 짓값을 받았기 때문이다.
13. 용서다. 그래야 산다. 따지지 말아라. 어떤 죄라도 성자와 분체와 같이 '용서'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자에게 '그 짓값'이 간다.
14. 성자와 분체는 용서했으니, 모두 '상대가 죄지은 것에 대한 감정'을 가지지 말고, 죄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용서하기다.
15.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 속에 있는 자는 '사망의 사슬'에 묶여 영원히 살게 된다.
16. 용서하면, 죄지은 자가 언제든지 '죄'에서 나올 수 있다.
17. 용서하지 않고 계속 '죄'에 묶어 놓으면, 죄지은 자가 때가 되어 회심하고 나오려 해도 못 나온다.
18. <죄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과 성자가 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가 용서하시면, 모두 '용서'다. 모두 '하나님과 성자의 결정'에 따라서 하여라.

19.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준다. 고로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고로 그 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20. <사탄>에게 풀려나고 <사망>에서 벗어나,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21. <주>는 하늘과 땅을 위해 ‘조건’을 세운다. 그러면 ‘조건 세운 주의 것’이 된다.

22. <주>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것’이 된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23. 행해라. 행하면, ‘실체’로 변화되어 존재하게 된다.

24. 행하면 ‘실체’가 되니, 몸부림쳐서라도 행해야 된다.

25. <땅에서 육신이 행한 것>은 <천국>에서 ‘실체’가 되어 ‘자기가 거할 집과 환경’이 실제로 만들어진다.

26.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으로 행한 것>도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행하신다.

27. 어떤 사람을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실체’로 잘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28.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실체’로 용서해 주신다.

29. <기도>도 ‘하나의 일’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어 ‘실체’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

30. <자기 육신>이 진실로 기도하면 ‘자기 육이 가서 해 주는 것’ 같아서 ‘실체’가 된다. 그때 <자기 혼과 영>도 같이 가서 돕고, <성자>도 실제로 가서 도와주시어 ‘실체’가 되게 해 주신다.

31. 어떤 자의 <육>이 죄를 지었기에 꿈에 <그 영>을 보니, ‘흑암권’에 있었다. 그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진실로 기도했더니, 꿈에 <그 영>이 실제로 ‘빛 가운데’로 나와 있었다. 그 후 <그 사람의 육>이 자기 죄를 회개한다고 고하며,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32. 기도하면 ‘실체’로 이루어진다.

33. 기도하면 ‘실체’가 된다.

34. 주가 하듯이, 모두 <형제들의 죄>를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실체’가 되어 용서가 된다.

35. <흑암 쪽에 사는 영>이라도 ‘그 육과 영을 위해’ 기도하면, 성자가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어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36. <육계>에서 ‘전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여 <영계에서 사망에 처한 영>을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하며 전도하기도 한다. 이를 알고 서로 용서하고, 기도해 주고, 생명권으로 끌어와라.

37. 알고 보면,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38. 사람들은 상대가 잘못하여 자기에게 ‘해’가 되면, ‘책망’도 하고, ‘화’를 내면서 말하며 대한다.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성자와 주가 자기를 용서하셨듯이 자기도 형제를 깨끗이 용서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고 잘해라.” 해야 된

다.

39. <형제의 죄>를 심판하지 말아라.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뿐이시다. 재판관을 두고 스스로 심판하는 것은 ‘스스로 죄를 짓는 행위’다.

40.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공의로운 재판’을 하신다.

41. <자기 감정의 재판>은 ‘공의로운 재판’이 되지 못한다.

42. <자기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면, 그로 인해 자기만 죄를 짓게 되어 ‘죄인’이 된다.

43. <자기 감정>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생명을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영적 살인자’가 된다.

44.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로 취급하신다.

45. <죄의 용서>는 ‘주의 조건과 사랑’으로 받게 되며, ‘삼위일체의 사랑과 허락’으로 받게 된다.

46. 죄를 용서받았으면, ‘온전한 행실’로 보답하기다.

<2015년 2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47. <이성의 죄>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신부 역사’를 이루며 ‘창조 목적’을 이루며 ‘휴거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어 치명적인 죄다.

48. (성자) <이성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로 인해 ‘자기 영혼’이 멸망하게 되고, ‘육’도 패망하게 된다.

49. (성자) <음식>을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부르냐? 먹었어도 하루도 못 가서 또 배고프다. <이성의 사랑, 육체적 사랑>도 마치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사랑해도 ‘순간’이면 그 기쁨이 끝난다.

50. 누구든지 ‘삼위일체의 사랑’을 앎으로 <영의 사랑, 정신적 사랑, 삶 속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 사랑은 <육체적 사랑>에 비해 천 배, 만 배 더 오래가고, 크고, 그로 인해 엄청난 것을 얻게 된다.

51.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짓는다 하지만, 대부분이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알고도 죄를 짓게 된다. 알면서도 ‘절제’를 못 해서 죄를 짓는다.

52.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뇌의 생각’에 시동이 걸리면 멈춰지지 않는다.

53. 아예 <생각>으로도 시동을 걸지 말아라.

54. <미움>도 한 번 ‘뇌에서 생각’으로 시동이 걸리면, 그 생각을 막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55. 이성 죄, 혈기, 분노, 미움, 세상 유혹 등 모든 것이 ‘생각’으로 시동이 걸리면, 멈춰지지 않고 행하게 된다.

56.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생각’이 짓값을 받아야 된다. <육>이 죄를 지으면 ‘육’도 짓값을 받아야 된다.

57. <마음의 죄, 행실의 죄>는 ‘자기 뇌파’를 타고, 죄를 짓는 그 즉시 하나님께 올라간다.

58. CCTV가 24시간 동안 ‘자기가 행한 것들’을 찍으면 그것이 다 저장되어 보게 되듯이, 자기가 ‘생각한 것들’과 ‘행한 것들’이 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올라간다.

59.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가 각 개인별로 천국에 저장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

60. 삼위일체는 <의>도 <불의>도 정확히 다 보신다. 마치 저울에 달듯이, 하나하나 달아서 정확히 계산하신다. 공의의 삼위일체이시다.

61. 용서하면 산다.

62. 용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죽는다.

63. <죄의 쓰레기>를 ‘주’가 다 청산해 주고, <죄의 보따리>를 ‘주’가 대신 다 저 주고 청산해 주었다. 그러니 <죄의 쓰레기>와 <죄의 보따리>를 다시는 풀지 말아라.

64. <주가 용서해 준 것>을 잊으면 죽는다.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점점 떠나가고 계신다. 우리가 걱정되니 <많은 말씀>을 해 주신다.

2. 성자가 떠나셔도 <성자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마치 성자가 옆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 주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다.

3. <말씀>이 ‘자기에게 보화’다. ‘자기를 지켜 줄 무기’다. ‘자기와 늘 함께하시는 성자와 주’다. ‘더 없는 성자와 주의 사랑’이다.

4. 사랑하면 <말씀>을 많이 준다. 걱정되면 <말씀>을 많이 준다.

5. <성자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생각’을 전환하고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

6. <죄>가 있으면, 사탄이 쥐고서 사망권에 가두고 괴롭힌다. 고로 그 몸으로는 ‘자기 할 일’도 못 하고, ‘생명의 뜻’도 못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도 못 받는다.

7. 사탄에게서 풀려나고 사망권에서 벗어나 ‘자기 할 일’을 하고, ‘생명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고 성자와 주는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8. <죄>는 그냥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짓값’을 받고 ‘조건’을 세워야 된다.

9. <주>가 ‘대신 회개’하고 ‘대신 짓값’을 받고 ‘대신 조건’을 세워 주었기에 <죄>를 용서받은 것이다.

10. <주의 희생과 사랑과 조건>으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깨끗해진 자기 자신’을 다시 더럽히지 말고, ‘용서의 가치’를 잊지 말고 ‘주의 조건’을 잊지 말고, <온전하게 살아야 할 때>다.

11. 주가 우리를 대신하여 회개하고 짓값을 받았으므로 첫째, <하늘 앞에 지은 죄>를 사함 받았다. 둘째, 이제는 자기 죄를 사함 받은 것같이 ‘형제들 간에 서로 지은 죄’를 용서해 줌으로 <땅에서 묶인 것들>을 풀어라. 셋째,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살아라.

12. 온전하게 살려면 첫째, ‘뇌’를 잘 사용해야 된다.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작동법>을 알아야 운전하듯, 사람이 살면서도 <자기 뇌 작동법>을 알아야 사고 내지 않고 인생을 온전하게 살 수 있다.

13. 온전하게 살려면 둘째, ‘성장’해야 된다. 곧 <육 성장, 정신 성장, 행동 성장>이다.
14. <무용>도 ‘각 동작’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듯, <사람>도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내용’도 ‘운명’도 달라진다.
15. 무용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두 가지 동작’을 못 한다. ‘양손을 하늘 위로 올리고 뛰어가는 동작’을 할 때에는 그 동작만 할 수 있지, 동시에 ‘손을 좌우로 펴고 뒤로 가는 동작’은 못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은 ‘두 가지 생각과 행동’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
16. <사람의 뇌>는 ‘순간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는 한다. 그러나 실상 <뇌가 작동할 때>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작동시키지 못한다. ‘한 가지’에 꽂혀서 생각하게 된다. 그에 따라 <몸>도 ‘그 한 가지 생각’에 꽂혀서 행하게 된다.
17. <기도하는 시간>에도 생각이 ‘육적’으로 꽂히면 다른 일을 하거나 자게 되고, 생각이 ‘영적’으로 꽂히면 기도하게 된다.
18. <같은 시간>을 두고 생각이 ‘의’에 꽂히면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고, 생각이 ‘불의’에 꽂히면 ‘불의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
19. <같은 시간>에 ‘불의와 의’를 동시에 생각하고 행하지 못한다. ‘불의’ 아니면 ‘의’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한다.
20. 생각이 ‘이성’에 꽂히면, 한순간 ‘이성’으로 뇌가 작동되어 진행한다. 이때 <이성을 자르는 방법>은 ‘처음에 이성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즉시! 뇌에서 ‘이성의 생각’을 중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몸동작’으로 진행되어 몸도 행하게 된다.
21. <생각>도 <행동>도 한 번 진행되면, 중단이 안 된다.
22. <사람의 뇌>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누른 뒤 엘리베이터가 한 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스위치를 누른 층’까지 가게 된다.
23. <사람의 뇌>도 한 번 작동되면, ‘그 단계’까지는 멈추지 않고 진행된다. 그러다 결국 <몸>으로도 진행하게 된다.
24. <자기 생각의 스위치>를 ‘이성 행위, 자위행위 쪽’으로 누르면 <생각>도 <몸>도 ‘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25. <생각의 스위치>를 ‘안 하는 쪽’으로 누르면 <생각>도 <몸>도 ‘안 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26. 하나님이 ‘뇌’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배우고, <뇌 작동법>을 알고 써라.

<2015년 2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7. <차>는 ‘손’으로 작동시키고, <뇌>는 ‘생각’으로 작동시킨다.
28. <뇌>는 ‘생각’으로 시동을 걸고, ‘생각’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작동시킨다. 그러면 ‘모든 지체의 신경들’도 같이 시동이 걸려서 ‘생각의 스위치’를 허락하여 ‘몸’도 같이 행한다.
29. 고로 불의한 것을 두고서는 <생각>을 허용하기 전에 <생각>이 ‘시동’을 끄고 절제해야 된다.
30. 불의한 것을 두고 <생각>이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마치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아서 <몸 전체>가 진행하여 일단 ‘한 단계의 목적지’까지 간다.

31. 한 번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고 ‘생각의 시동’을 걸면,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다. ‘그 한 단계’가 무엇이든지 일단 진행된다. - 이것을 알고 자기 뇌를 써라.
32. 불의한 것을 두고 절제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절제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라.
33. 불의한 것을 두고서 첫째, <생각>으로 시동을 걸지 말아라. 둘째, <생각의 시동>이 걸렸어도 <행동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지 말아라.
34. <생각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행동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일단 가진다. 그때는 자위행위도, 사랑 행위도, 각종 불의한 행위도 못 막는다.
35. <생각의 스위치>를 눌러서 한 번 뇌를 작동시키면, 마치 청룡열차(놀이기구)가 한 번 출발하면 일단 끝까지 가야 하듯,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다.
36. 한 번 <생각의 스위치>를 눌러서 <생각의 시동>이 걸리면 타락 문화를 접하든지, 이성의 행위를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TV를 보든지, 음란물을 보든지 ‘한 단계’는 다 해야 끝난다.
37. 상대가 없어도 혼자 음란한 생각을 하든지, 자위행위를 하든지 한 번 그쪽으로 생각하고 ‘생각의 시동’이 걸려 진행하면, <뇌>에서 ‘흥분 액’이 나와 <몸>으로 가서 ‘한 단계’까지는 행한다.
38. 불의, 죄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으로 시동을 걸지 말고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라. <생각>에서 절제하고 잘라라.
39. 몰라서, 기술이 없어서, 성장되지 않아서, 판단을 못 해서, 알면서도 절제를 못 해서 죄를 짓고, 사고를 내고, 해를 당한다.
40. 뱀을 잡을 때 ‘몸’이나 ‘꼬리’를 잡고 들면 물린다. ‘뱀의 머리’를 움켜쥐어야 안 물린다.
41. <공중의 왕 독수리>도 뱀을 잡을 때는 ‘절창 같은 한 발의 발톱 네 개’로 ‘공격을 가하는 뱀의 머리’를 움켜쥐는다. 그러면 뱀이 ‘몸’으로 감으면서 공격할 것을 알고, ‘다른 한 발’로 ‘뱀의 몸’을 당긴다.
42. 독수리에게도 <뱀 잡는 방법>이 있듯이, <자기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곧 ‘생각’으로 막고 ‘제재’하는 것이다.
43. 불의한 것을 두고 아예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 ‘사탄 불가침’이다. ‘죄’도 안 짓는다.
44. <인생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의’ 앞에서는 <생각의 스위치>를 강하게 눌러 행하고, ‘불의’ 앞에서는 강하게 절제하며 <생각의 스위치>를 안 누르는 것이다.
45. <생각의 시동>을 ‘불의’로 켜 놓고, <생각의 스위치>를 ‘불의’로 눌러 놓고 중간에 안 하려고 하니, 멈추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고로 ‘불의’를 생각하면 스스로 저주하며, 생각나기 시작했을 때 즉시 멈추어라. 그리고 ‘옳은 것’을 강하게 생각해라.
46. 성자는 늘 옆에 계시며 성령님과 함께 ‘좋은 쪽’으로 감동시키며 이끌어 주신다.

<2015년 2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47. 인간은 약하니, 늘 기도해라.

48. 기도하면, 자기가 ‘말’로 고하면서 <뇌신경>을 자극시키니 <뇌신경>이 흥분된다.
49. 기도하면, ‘영적 흥분의 시동’이 걸린다. 고로 ‘삼위일체의 생각’으로 ‘의’로 <뇌>가 조종된다. 삼위와 ‘생각이 일체’ 되니, 삼위가 역사하신다.
50. 삼위와 같은 생각을 하니, 자기 생각도 ‘삼위의 생각’으로 시동이 걸려서 그쪽으로 <생각의 스위치>를 누르고 ‘삼위의 생각’대로 쉽게 행하게 된다.
51. 그래서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뇌의 구조>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52. <기도>에 숨겨진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해라. 그러면 강해진다.
53. <전자 제품의 구조>를 알아야 잘 쓰듯이, 인간의 최고 첨단 장비인 <뇌의 구조>를 알고 쓰면 인생 성공이다.
54. <자동차>를 잘못 쓰면 차 사고가 나서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불행한 자가 되고, 죽기도 한다. / 이와 같이 <뇌>를 잘못 쓰면, 영도 혼도 영원한 불구가 된다.
55. <집념>을 강하게 하고, 목적을 위해 <정신을 일도> 하고, 오직 ‘선’으로 강하게 생각하고 행하면, 자기 뇌에서 <목적>만 생각하고 <목적지>만 향해서 가니 잡생각을 하지 않고, 잡길을 가지 않고, 시간에 안 쫓기고 <목적>을 달성한다.
56. <자기 할 일>을 놓고서, <목적>을 놓고서 꼭 기도해라.
57. 기도할 때는 ‘자기가 온전하게 생각하는 때’다. 고로 <뇌>가 기도대로 돌아가서 ‘희망’으로 흥분되어 시동이 걸리고, 그로 인해 자기 스스로 ‘불가능한 것’도 쉽게 행한다.
58. 기도하면 자기가 ‘자기 뇌의 작동’을 주관하게 되고, 삼위일체도 같이 해 주시고, 자기 혼과 영도 자기 육과 같이 행하니 쉽게 행하게 된다.
59. 전능자의 말씀대로 자기를 주관해야 ‘타인’도 주관하고, ‘만물’도 명하면 순종하고, ‘사탄’도 물리친다.
60. 사회에서 교회에 안 다니는 자들은 ‘마음과 정신’을 일도하고 ‘목적’을 위해 전심을 다하니, <뇌신경>이 그쪽으로 흥분되어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거기에 집중하여 ‘시동’을 걸고 ‘스위치’를 누르고 행하니, 그쪽 면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6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목적’을 두고 강하게 결심하고 전심으로 행한다면, <자기 뇌>도 <몸>도 시동이 걸려서 하게 되고 <삼위일체>도 역사하시니 더 잘된다.
62. 사람은 <뇌>에서 ‘생각’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 <뇌>에서 시작하여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63. <생각>을 놀리면, 뇌가 굳어서 젊은 자라도 치매에 걸린다.
64. 현대인들은 최첨단의 도구인 <뇌>는 잘 안 쓰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만지작거리며 <스마트폰>만 쓴다.
65. <스마트폰>만 쓰다가는 <뇌의 생각>을 놀리게 되어 ‘생각의 지능’이 떨어지고 ‘치매 환자’처럼 되고 만다.
66. <뇌>를 써라. ‘성자의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행해라. 그러면 엄청난 것을 이루게 된다.

67. 안 좋은 것에 습관이 든 뇌, 중독된 뇌, 안 좋은 쪽으로 굳은 뇌는 그쪽으로 뇌세포가 굳어져서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육신’이 망하고 ‘혼과 영’이 망하고, 어느 누구라도 ‘사망’으로 가는 것이 <천륜의 법칙>이다.
68. <집>을 안 지으면, 평생 집 없이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뇌>를 안 고치고 좋게 행하려면, 평생 못 한다.
69. 잘못된 쪽으로 습관이 든 뇌, 중독된 뇌, 굳은 뇌를 안 고치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게 하고, 그로 인해 <구원>에도 <휴거>에도 큰 지장이 생긴다.
70. 잘못된 쪽으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들고 중독이 되어 굳은 뇌를 고치지 않는 자는 바다에서 <돛 없는 배>를 타고 있는 자와 같아서 세상에서 인생의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나 버린다. 그러다 결국 파도에 강하게 부딪혀서 암석과 충돌하여 배가 파선되고, 파도에 뒤엎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살기 위해 수영하고 있는 신세가 된다. 고로 고치고 행하기다.
71. <고장 난 차>를 안 고치고서는 정상으로 달릴 수 없듯이, <고장 난 뇌>를 안 고치고서는 인생을 정상으로 살 수 없다.
72. <자기라는 차>를 고쳐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온전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변화된다.
73.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것도 고치는 것이다.
74. 전능자 삼위일체 앞에 흠 없이 깨끗이 고치기다.
75. 사람이 필요 없는 것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다가는 힘을 소모해서 갈 길을 제대로 못 간다. 고로 ‘자꾸 필요 없는 것을 하려 하는 자기 자신’을 고쳐라.
76. ‘필요 없는 것’을 안 하고 ‘필요한 것’만 행하면, 힘이 남으니 <목적지>까지 빠르게 간다.
77. <신앙>은 고치기다. 만들기다. 변화시키기다.
78. <변화가 멈춘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2015년 2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비행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비행기에 사람을 싣고 ‘공중’을 날게 되듯, <휴거의 영>도 완벽하게 변화시키고 만들어야 그제야 성자와 일체 되어 ‘천국’으로 날아올라 가게 된다.
2. <집>도 완전히 만들어야 사용하고, <음식>도 완성돼야 먹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휴거의 영>도 완성돼야 성자가 취해서 ‘천국 황금성’으로 데리고 가신다.
3. 완성되지 않았는데 취하면, ‘성장기에 있는 하와를 취한 아담 격’이 된다. 타락이다. 고로 성자는 ‘인간의 육, 정신, 행위’가 온전히 성장되고 ‘영’이 성장되고 완성돼야 <휴거>로 취하시어 <황금성>으로 데리고 가신다.
4. 성장하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고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인간의 육, 정신, 행위, 영’을 성장시킬 <시대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5. <성장>과 <완성>이다. 성장해야 완성된다.
6. <쌀>도 성장 중일 때 까 보면 ‘뿌연 물’만 들어 있다. - 더 성장되면 물이 형체를 이루어 ‘물렁한 쌀 열매’로 변화

되어 있다. - 거기서 더 성장되면 ‘쌀눈’이 박혀 형성되어 있다.

7. 단계를 거쳐 성장해야 완성된다.

8. 성장은 크게 ‘3단계’로 된다. <종교>도 <사람>도 ‘3단계’로 성장하여 완성된다.

9.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3단계로 성장하여 완성된다. 1차 구약역사, 2차 신약역사를 거쳐 성장해야 3차 성약역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서 역사를 완성하게 된다.

10. <구약역사>와 <신약역사>는 ‘성장기 역사’다. 고로 하나님이 본래 펴시려던 <신부로서의 사랑의 뜻>을 펼 수 없었다. 이는 마치 어린 소녀를 ‘사랑’으로 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성장해야 ‘사랑’으로 취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거쳐 6000년 동안 역사를 성장시키셨다. 그리고 성약 때 비로소 <사랑의 뜻>을 완성하신다.

11. <구약역사>는 ‘1차 성장기’로서 ‘소생급 봄’과 같고, <신약역사>는 ‘2차 성장기’로서 ‘장성급 여름’과 같고, <성약역사>는 ‘3차 성장기’로서 ‘완성급 가을’과 같다.

12. <구약>에서 ‘씨’를 뿌리고, <신약>에서 ‘곡식과 열매의 섭’을 만들고, <성약>에서 ‘열매’를 완전히 만들어 완성시킨다. <마지막 성약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완성기 시대’다.

13. <봄>에는 ‘법씨’이고, <여름>에는 ‘벼’이고, <가을>에는 ‘황금별판’이다. <가을>이 돼야 ‘추수’하듯이, <마지막 성약신부 역사>가 돼야 역사를 완성시켜 ‘휴거’로 거두신다.

14. <구약 / 신약 / 성약>과 같이 <사람의 성장 과정>도 3단계다. <육 성장 / 정신 성장 / 행동 성장>이다. 이 3단계가 다 성장돼야 비로소 ‘완성’된다.

15. 첫째, 육 성장이다.

16. <사람의 육>이 ‘성장 중일 때’와 ‘완전히 성장됐을 때’는 기능, 모양, 형태, 아름다움이 비교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

17. <육>이 다 성장해야 기능을 하고, 아름답고, 튼튼하다.

18. <모든 지체>가 성장하여 완성돼야 창조주가 창조한 ‘인간의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고 제대로 사용하게 된다.

19. 사람의 지체 중의 핵인 <뇌>도 성장되어 ‘파란빛’이 나야 된다.

20. <성장되지 않은 뇌>는 ‘옳은 생각’을 못 하고, ‘옳은 것’을 가르쳐 줘도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다.

21. 육이 완성되기 전에 ‘이성 행위’를 하면 <타락>이다. 아담과 하와처럼 ‘육’도 평생 고생하고 ‘영’도 흑암에서 유리하게 된다.

22. 차가 뒹굴면, 그 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다 다치거나 죽는다. 이와 같이 성장기 때 타락하면, 어느 누구든지 흑암에서 유리하게 된다.

23. 둘째, ‘정신 성장’이다.

24. <정신과 생각>이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행한다. 고로 ‘사랑’도 막 하고, ‘돈’도 막 쓰고, ‘안 봐야 될 것’도 호기심에 닥치는 대로 보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도 닥치는 대로 행한다.

25. 하와는 <육>뿐만 아니라 <정신과 생각>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다가 타락했다. 만일 <정신과 생각>이 성장했다면 ‘사탄의 꾀’을 알고 이겼을 것이다.
26. <성자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신이 성장한 표’다!
27. <성장되지 않은 정신>은 ‘성장되지 않은 몸’처럼 보잘것없다. <성장한 정신>이라야 ‘발육된 아름다운 몸’처럼 아름답다.
28. 사람은 <정신과 생각>에 따라서 행한다. 그 행위가 ‘자기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고로 <정신과 생각>을 절대 성장시켜라.
29. <정신과 생각을 성장시키는 데 최고의 자료>는 ‘말씀’이다.
30.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빨리 성장된다. ‘마음과 생각’이 강한 만큼 빨리 성장된다.
31. 셋째, 행동 성장이다.
32. <행동>이 성장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100% 조절하여 온전하게 행하기 원해도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33. 새벽에도 <마음>으로는 일어나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 자꾸 해 보면서 <행동>을 성장시키면 새벽에 눈이 떠지고, 잠에서 깨면 벌떡 일어나 기도하게 된다.
34. <행위>가 완성돼야 완전히 행할 수 있다.
35. ‘행위가 성장되지 않은 자’는 ‘운전을 배우다가 만 자’와 같아서 <인생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낸다.
36. <행위>가 ‘80선’까지만 성장되어 있으면 ‘90선’을 행하려 해도 안 행해진다.
37.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면, 일을 저지른다.
38. <행동 성장>을 하려면, 자꾸 행해 봐라!
39. <몸>이 발육되지 않았는데 ‘발육된 몸매’를 보이려고 하면, 절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행위>가 성장되지 않았는데 ‘완전하게 행해라.’ 하면, 완전하게 행할 수 없다.
40. 운동선수를 보아라. 거듭 해 보고 고치니 유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배우고, 자꾸 해 보고, 고칠 것을 고쳐라. 그래야 유능하게 행한다.
41. 독수리라도 ‘새끼 때’는 상공을 날지 못한다. 엄마 독수리를 따라서 하다가 결국 상공을 날게 된다. 이와 같이 <중심자, 표상자>를 따라서 자꾸 해 보고, 고칠 것을 고쳐라. 결국 유능하게 된다.
42. 성자 따라 하기, 주 따라 하기, 말씀 따라 하기다!
43. <육>이 성장됐으니 <정신>이 완전히 성장되고 <행동>이 완전히 성장되면 ‘100% 성공’이다.
44. 성적 생각과 행위, 모순된 생각과 행위, 자기 마음대로 사는 행위가 나오는 원인은 무엇이나? - <육>은 성장했으나, <정신과 행동>이 성장하지 못하여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이다.

45. <정신과 행동>이 완전히 성장되지 않고서는 <영>도 변화되지 못하여 ‘천국 황금성’에 가지 못한다.

46. 알고 행해야 성장된다. 모두 알고 행하여 성장하고 완성하도록 <말씀>을 주는 것이다.

47. 하나님의 역사도 <1단계 4000년 구약역사> - <2단계 2000년 신약역사>를 거쳐서 성장했기에 <마지막 3단계 1000년 성약역사> 때 구원자를 통해 ‘완전한 말씀’을 준다. 그리함으로 <1단계 육 성장> - <2단계 정신 성장> - <3단계 행동 성장>을 하게 하여 ‘침단의 휴거 역사’를 이루시며 ‘사랑의 뜻’을 완성하신다.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완전하시다. 고로 인간이 삼위와 영원히 같이 살려면 <생각과 행실>이 성장하여 완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영>도 완전하게 변화되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휴거되고, 천국에 가서 삼위와 영원히 같이 산다.

2. 인간을 ‘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심에 진정 감사해라.

3. 만일 <인간>은 <신>과 다르니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며, ‘귀 하나, 손 하나’를 빼고 만들었다면 어땠겠느냐.

4. ‘삼위일체의 형상’에서 하나도 안 빼놓고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해 주신 성삼위께 진실로 감사드리자.

5. 삼위는 인간이 <육과 정신과 행동>을 성장시켜 <영>을 완전하게 하여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영원히 같이 살고자 ‘삼위의 형상’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6. 인간은 약하고 신도 아니니,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 이 말은 ‘비원리 이론’이며 ‘사탄의 이론’이다. - ‘하나님의 기대를 꺾는 말과 행위’다.

7. 완전하게 행해라. 완전하게 할 수 있다. - 이 말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구원자의 말이다. -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다.

8.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할 수 있으니, ‘완전하라’ 말씀한다.

9. 인간이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삼위가 도우시고 구원자가 함께하니, ‘완전하라’ 말씀한다.

10. 완전히 행해야 <천국 황금성>에 가니, ‘완전하라’ 말씀한다.

11. 전자 제품도 완전하게 만들어야 사용한다.

12. 옷도 신발도 완전하게 만들어야 입고 신는다.

13. 옷을 입을 때도 빠진 것 없이 완전하게 입고 나간다.

14. 운전도 정신 차리고 하면 완전하게 한다.

15. 설교도 제스처, 강약, 발음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노력이다.

16. 밥도 한 그릇 먹을 때 완전하게 먹는다.

17. 월명동의 가시나무와 잡나무도 톱으로 완전히 베 버린다.

18. 성지 땅 <야심작 돌 조경>도 완전하게 쌓았다.
19. 성지 땅 <성자 사랑의 집>도 완전하게 지었다.
20. 수영 선수도 왕복 200m를 완전히 돌고 온다.
21. 축구 선수도 골문에 공을 100% 완전히 넣어 골인 시킨다.
22. 농구 선수도 100% 완전히 공을 넣는다.
23. (성자) 나와 같이 <천국 황금성>에 가자! 고로 완전해라.
24. 자위행위, 음란물, 이성 행위를 해도 ‘육신’이 안 죽으니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죽어 <사망>에 있다.
25. (성자) 각종 불의를 끊고 완전히 행해라!
26. 목숨 걸고 하면 ‘불의를 끊은 것’이 가능하다.
27. 하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정말 하고자 한다면,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정말 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완전히 실천할 수 있다.
28. <불의>는 행하지 않으려 하고, <의>는 행하려 해라.
29. ‘성적인 것들을 끊어야 내가 산다. 불의를 끊으면 즉시 복이 찾아온다. 지금 일어나서 기도해야 내가 10년 동안 찾던 것을 거리에서 줍는다. 일어나면 황금 보따리를 줍는다.’ 하고 행해라.
30. 교회에 안 나오고 인터넷이나 문서로만 말씀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구원자’를 무시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데, <휴거>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1년이 가도 ‘영’이 제자리에 있다.
31. <휴거 300선>은 ‘휴거의 완성 단계’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다. 완성된 상태에서 더 빛나게 아름답게 계속 차원을 높여 변화될 수 있다. 그래야 ‘영’이 더욱 권세를 갖게 되고, ‘천국의 집과 정원’도 계속 층수를 높이고 크기를 넓히면서 만들어진다.
32. <휴거의 차원>은 ‘자기 영의 권세’다.
33. 교회에 나와 단상의 말씀을 통해 감동받고 은혜 받고 행하는 자들은 <그 영>이 ‘호랑이’처럼 변화되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야옹거리는 고양이 신세’다.
34. <개>도 공항에서 소지하지 말아야 할 ‘마약’을 찾아내고, ‘과일’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35. <물고기>도 계절에 따라서 완전하게 행한다.
36. <우주선>도 완전히 만들어서 쏜다. 그러면 10년 동안 지구의 궤도를 돌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 ‘췌덩이’도 하는데 ‘사람’이 완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해라. 하려고 해라. 그러면 다 한다.
37.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그리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영을 <사망>으로 끌고 가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
38.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인간은 ‘그 완전한 만물’을 다 쓰고 살고 있다. 고로 완전하게 해라. 하면 할 수 있다.

<2015년 2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죄를 짓고 받는 '죄값'은 너무 고통스럽다.
2. '인간이 죄지은 것'에 비하면 '지옥에 가서 죄값으로 사탄에게 받는 고통'은 너무도 큰 대가다.
3. '5분 동안 받는 지옥의 고통'은 '한 시대 기간 동안 받는 고통'과 같았다. 이 고통은 어느 누구도 받아서는 안 된다. 못 견딘다.
4. 그래서 <주>는 시대의 죄, 민족의 죄, 섭리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조건을 세워 주며 용서했다.
5. '육신이 지은 죄' 때문에 '영이 강도 높은 극렬한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6. '죄'에 비해 '죄값'은 1억만 배도 더 된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영들은 너무도 억울하다.
7. 그러니 갖은 몸부림을 쳐서라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꼭 회개해라. 힘들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라.
8. <전능자의 말을 거역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꾀>을 받고 행하면, '사탄과 같은 취급'을 받고 '사탄이 사는 곳'에 가게 된다.
9. <섭리사를 불신하고 나간 자들의 꾀>을 받고 <그들의 악평>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행한 대로 받는다.
10.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하면, 그가 가는 예정된 '황금성'으로 가게 된다.
11. 하나님의 천적인 <사탄>을 따라서 행한 자는 사탄이 가는 '극렬한 고통의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
12. <지옥 영계>도 '행위'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사탄의 꾀를 받고 행해서 가는 곳, 사탄의 몸이 되어 이성 타락해서 가는 곳, 사탄의 꾀를 안 받았더라도 자기 책임을 못 해서 가는 곳, 악평해서 가는 곳, 우상을 섬겨서 가는 곳 등 천층 만층이다. - 그곳에는 '혼자'만 살지 않고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영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13. 가벼운 죄를 짓고 <흑암 영계>에 간 영들은 그곳에서 하늘을 가까이하면서 복직하려고 한다.
14. <이성 죄>는 '자기 육'에게도 '영'에게도 가장 치명적인 해를 준다.
15. <이성 죄>를 범하면, 가장 많이 추락된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대하는 최고의 핵'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16. <이성 죄>는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행위'이며 '운명이 바뀌는 행위'다.
17. <이성 죄>를 지은 자는 성자와 주를 배신한 자로서 '성자와 주께 최고의 큰 충격'을 준 자다.
18. <이성 죄>를 지으면, 다시 무섭게 '조건'을 세워서 올라가야 된다. 차라리 '이성 죄를 안 짓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쉽다.
19. <사랑>이 온전한 자들은 그 영이 '사랑 면'에서 빛이 나고, '사랑의 차원'이 높아서 아주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산다.

20. <사랑>으로 하늘과의 운명이 갈린다.
21. <사랑>이 ‘핵’이다.
22. <사랑>이 깨지면, ‘방향과 뜻’이 돌아간다.
23. <사랑>이 깨졌으면, 반드시 다시 돌이켜 행해야 된다.
24. 성자도 주도 <사랑>으로 구원하고 휴거시킨다.
25. <사랑의 지불>이 100% 없으면, 100% 휴거가 못 된다.
26. 돈을 안 내는 자에게 ‘목적한 물건’을 안 주듯, <사랑의 지불>이 없는 자는 휴거되지 못한다.
27.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는데 구원받거나 휴거된 자는 창세 이후 단 한 명도 없었다.
28.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켜야 된다.
29.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지킬 기회다. 그때 못 지키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
30. 꼭 이성 죄, 살인죄, 우상숭배 죄만 죄가 아니다. 성자와의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것, 성자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것, 자기 할 일을 두고 안 하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성자와 대화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도 ‘각종 불의의 죄’다.
31.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만큼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의 유혹과 꾀’을 받아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시대 환난>이다.
32. <시대 환난>을 받지 않으려면, 육과 정신과 행동을 성장시키고 완전하게 행해라.
33. 완벽하게 행하면, 육도 혼도 영도 ‘바로 그 날부터’ 변화된다.
34. 사람이 하려고 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행할 수 있다. 왜 <자기 생활>은 완벽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은 완벽하게 안 지키느냐. 첫째, 사탄이 막기 때문이며 둘째, 자기가 안 하기 때문이다.
35. 머리로 완전히 깎고, 부역에서 물도 완전하게 끓이면서 ‘성자 사랑, 형제 사랑, 기도, 증거, 전도, 가르침, 관리’는 왜 완전하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할 수 있다. 행해라.
36. ‘자기 생활 중의 일부’만 완벽하게 하지 말고, ‘각종으로 다’ 완벽하게 행해 보아라.
37. 완전히 행하면, ‘영웅’이 되고 ‘신’이 된다.
38. 완전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원자폭탄, 미사일, 탱크, 신형 무기와 같은 <신앙의 무기>가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주어진단다.
39. ‘자기’라는 <배>에 ‘독수리 날개’와 같은 <주의 뜻>을 완벽하게 달고 완전하게 행해라.

<2015년 2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형체’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다.

2. <시체>도 ‘형체’는 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없다.
3.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 <사람>이다.
4. ‘육의 형체’뿐 아니라 ‘마음, 생각, 혼, 영’이 있어서 생각하고 행하니, <사람>이다.
5. ‘마음, 생각, 혼, 영’이 있더라도 ‘기능’을 못 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6. 바람도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다. <하나의 공기>에 불과하다.
7. <사람>도 ‘마음·정신·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숨만 쉬는 <하나의 공기 같은 존재>다.
8. 바람이 불듯 ‘마음·정신·생각’이 물결같이 파도같이 움직이며 기능을 하고, 칼같이 예리하게 기능을 해야 <사람>으로서 제대로 존재하게 된다.
9.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혀야 <바람>이 불고, <강풍>도 불고, <태풍>도 불게 된다. /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삼위일체의 마음’이 만나서 일체 돼야 바람 불고, 태풍 불고, 천둥 번개 치듯 <무섭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10. <인간의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바람>이 불지 않아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11. <생각>을 놀리지 말고 움직여 생각해라.
12. <자기 생각>을 <자기 몸>으로 행해야 눈으로 보고, 느끼고, 현실과 부딪혀 실체를 얻게 되고, 돌풍 치는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난다.
13. 첫째 생각하고, 둘째 행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얻을 것>을 얻는다.
14.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이리저리 흘러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고로 <마음과 생각>을 때려잡아야 된다.
15. 자기가 <못된 생각>, <삼위의 법을 벗어난 생각>을 하면, “이 마음아. 내 그냥 안 둔다.” 하면서 뱀 잡듯, 질항아리 깨뜨리듯, 가라지를 불사르고 잡초를 뽑듯 <성자의 말씀의 도끼>로 확 찍어 없애라.
16. 생각하는 대로 <뇌신경과 몸 신경>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진다. 고로 ‘생각을 잘하기’다!
17. <그릇된 생각>을 다스려라!
18. <그릇된 생각>을 뱀 잡듯 잡아라!
19. <그릇된 생각>을 질항아리 깨뜨리듯 깨뜨려라!
20. <그릇된 생각>을 잡초를 뽑듯 확 뽑아내라!

<2015년 2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생각이 ‘불의’로 길들여지면 ‘불의’를 좋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체질>에 배어 ‘불의’를 좋아하며 행하게 된다. 고로 <그릇된 생각>을 절제해라. 멸해라!

22. <그릇된 생각>을 절제하고 멀하면, 뇌가 즉시 <좋은 생각>으로 쏠려서 상황이 뒤바뀐다.
23. <불의한 생각>을 꺾으면 '승리하는 길'로 가진다.
24. <불의한 생각>을 멀한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을 멀한 것이다.
25. <불의한 생각>을 꺾고 멀하는 자는 그 시간에 '천국의 길'을 질주하게 된다.
26. <불의한 생각>을 없앨 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27. 배가 침몰되어 사람들이 배에 갇혀 있을 때도 '생명을 구할 골든 타임'이 있다. 그때를 놓치면 살리기 힘들다. 그 때를 잡으면 죽을 자도 살린다.
28. <불의한 생각>도 불의한 생각을 없애는 '타이밍'을 놓치면, <불의한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여 자기를 <불의한 곳>으로 이끌고 가서 <불의>를 행하게 함으로 자기를 침몰시킨다.
29. <불의한 생각을 없애는 골든 타임>은 '불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즉시! 그 생각을 확 밟고 짓뭇개서 멀하는 것이다.
30. <불의한 생각>이 아주 작더라도 그대로 두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결국 자기를 덮치게 된다.
31. <불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왔을 때, 즉시! 그 생각을 짓뭇개서 멀하는 자는 '대승리자'다.
32. <불의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즉시! 짓뭇개서 없애 버리면, '성자'가 생각나서 부르게 되고, 성자는 즉시 오시어 역사하신다.
33. <불의한 생각>을 짓밟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속한 자'다.
34. 매시간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이겨라!
35. <생각>은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의 영향을 받는다. 고로 보는 것, 듣는 것, 행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36.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의롭게 하지 못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주관'을 받게 된다.
37. <자기 생각>을 다스리면서 <불의한 생각>을 짓뭇개면, <사탄>도 짓뭇개 없애 버린 격이 된다.
38. <자기 생각>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을 다스리는 자이며, <자기>를 이기는 자가 <사탄>을 이기는 자다.
39. <불의한 생각>은 '지렁이만 한 뱀 새끼'가 커서 자기 몸을 휘감고 물어 죽이는 '독사'가 되듯 그같이 된다.
40. <불의한 생각>이 '독사'같이 커 버리면, 그때는 100% <독사 같은 불의한 생각>에 물려서 문제가 일어난다.
41. 고로 <불의한 생각>이 왔을 때 그 즉시! 뱀 새끼를 잡아 없애듯 짓뭇개 없애 버리기다. <뱀 새끼같이 작은 생각>은 짓뭇개기 쉽다.
42. <생각>을 다스리는 '성자와 성령님의 마음' 갓도록 간구해라.
43. 사람들은 '같은 파장의 대상자들'이다. 고로 누가 <불의한 생각>을 하면, 마치 '바람'을 타고 '나쁜 공기'가 자기에게 오듯 <불의한 생각의 파장>이 자기에게 전해져 온다. 고로 <불의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 즉시 <그 파장>을

잘라 버려야 된다.

44. <이성의 마음>도, <음란한 마음>도 ‘바람’을 타고 ‘나쁜 공기’가 와서 ‘코’로 들어가듯, ‘파장’을 타고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온다.

45. ‘나쁜 공기’가 ‘자기 코’로 들어오면 즉시 코를 막고 공기를 환기시키듯이, 즉시 ‘이성의 파장과 음란한 파장’을 저주하면서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말해라. 그러면 그 순간 <뇌의 파장>이 뒤바뀌어 버린다. 이는 마치 밤중에 도둑이 문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문을 확 여니, 도둑의 머리가 문에 부딪혀서 뒤로 넘어져 10층에서 떨어지는 격이라서 즉시 <불의한 마음>도 떨어지고, <사탄과 귀신>도 떨어져 박살 나 속 시원하게 없어진다. 그때부터 방에서 <성자>를 모시고 ‘사랑의 잔치’를 하게 된다. 이것을 못 하면, <사탄>과 함께 ‘불의의 잔치’를 하여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한다.

46. <불의한 생각>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멍청하다가는 <불의한 생각>을 박살 낼 기회를 놓친다.

47. <불의한 생각>이 오는 즉시! 그 생각을 확 밀쳐서 바위 절벽 밑으로 내던져 버려라.

48.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즉시 자르지 않고, 짓밟개지 않고, 멸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서 용납하는 자는 강도에게 당하듯 ‘불의’에게 당하고 만다.

49. <불의한 생각>이 났을 때 그 즉시 잘라라! 박살 내라! 멸해 버려라! 이것이 ‘불의를 행하지 않을 최첨단의 방법’이다.

50.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 살면서 <불의한 생각>을 깨뜨리고 의롭게 살기 위해 기도해라. 간구해라. 결심해라.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여 힘 있게 시작해라. - 기도의 힘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하여 ‘성자 사랑의 힘’을 채워라.

<2015년 2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뇌>는 ‘마음, 정신, 생각의 기구’다.

2. 사람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뇌의 화면>이 바뀐다.

3. <손>도 ‘뇌에 연결된 하나의 기구’다. 손에 ‘불’이 닿으면 뜨거운 것을 느끼고, ‘얼음’이 닿으면 찬 것을 느낀다. - 이와 같이 <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바뀐다.

4. <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대로 그대로 찍히듯이, <뇌>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뇌에 저장된다.

5.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고 혼자 생각만 해도 <뇌>는 생각이 작동되어서 그 생각이 저장되고,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서 <몸>도 그대로 행하게 된다. <뇌>는 자체적으로 창조한다.

6. <눈>으로 ‘자기가 원하던 것’을 보고 나면, 환경이 바뀌어도 ‘본 것’이 <뇌>에 녹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계속 생각나고 뇌가 그쪽으로 작동된다.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래 못 가고 잊어버린다.

7. 어떤 것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뇌>에 저장된다. 저장해도 기억하지 않으면 무(無)로 사라진다.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면, 계속 기억나고 생각한다. - <성자의 말씀>에 집중하여 늘 기억해라. <성자와 주>께 집중하여 늘 생각해라.

8. <육>이 잠을 자도 <혼>이나 <영>이 영계에서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이 <육신의 뇌>로 전달되어 생각한다.

9. ‘보고 들음으로 뇌에 저장된 것’은 자기가 집중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도 기억난다. 잊지 않으려면, 써 넣고 보아라. 그러면 ‘뇌에 저장된 것’보다 1000배나 더 잘 생각한다.

10. 매일 보고 듣고 행해야 ‘기억한 것’이 마치 현실의 것을 보듯이 눈에 선하다. - <말씀>을 매일 보고 듣고 행해라. <성자와 주>를 매일 생각하고 잊지 말아라.

11. 연속해서 눈에 보여 주고 귀에 들려 줘야 <뇌>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가서 행한다.

12.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뇌>에 잘 기억된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 - 고로 세상 그 무엇보다 성삼위를, 주를, 말씀을 좋아해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함께 살아간다.

13. <육신의 뇌>가 기억을 잘 못 하면, <혼의 뇌, 영의 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기억력이 좋고, 기억이 확실하다.

14. <혼의 뇌, 영의 뇌>를 사용하는 방법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다.

15. 정신을 집중하는 대로 ‘기억’나고, 행하는 대로 ‘실체’가 되어 존재한다. 그러므로 늘 보고 쓰게 된다.

16. <뇌>는 기억 세포가 죽으면, ‘눈’으로 봐도 기억을 못 하고 ‘귀’로 들어도 기억을 못 한다. <기억 세포>가 죽으면, 보나마나다. 들으나 마나다.

17. <손의 신경>이 죽은 자는 손으로 만지나마나 못 느낀다. 이와 같이 <뇌 세포>가 죽으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도 기억이 안 난다.

18. ‘그릇된 것’을 옳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굳히고 있는 자에게는 ‘옳은 것’을 보고 듣게 해 줘도 <뇌>에 안 들어간다.

19. <생각>이 온전해야 ‘온전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이 <뇌>에 그대로 입력되고, 그것을 옳게 생각하여 <몸>으로도 행한다.

20. <생각>이 온전하지 않고 <인식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생명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해 주고 ‘옳은 것들’을 보여 줘도 <뇌>에 저장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한다.

21. 굳은 생각, 굳은 뇌, 굳은 인식관은 ‘자기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이다.

22.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을 갖도록 간구해라. 그리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생각해라.

<2015년 2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23. ‘기성의 그릇된 성경 해석의 사고’가 짝 찬 자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먹는 것을 <손>에 쥐고 놓지 않듯이, ‘그 사고’를 <뇌의 손>에 쥐고 놓지 않는다.

24. ‘기성의 사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아라.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더 좋은 것을 줘도 자기 것을 놓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성인들의 뇌의 사고’는 구시대식으로 굳어 있기에 ‘새 시대 말씀’을 전해 줘도 듣지 않는다.

25. 어린아이가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먹다가 못 먹게 되면 그제야 손에서 놓는다. 기성인들도 그러하다.

26.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살아온 사고, 환경, 풍속, 행위’가 뇌에 꽉 차서 ‘민주주의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불편

하게 느낀다.

27. 원시인들에게는 ‘문명인들의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원시인들은 벗고, 열매를 따먹고, 흙냄새와 풀 냄새를 맡고 사는 것이 체질에 배어 있기에 ‘문명인들의 것’이 더 어색하다. 옛 시대 기성의 원시인들도 그러하다.

28. 원시인들에게 ‘차’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며 운전을 가르쳐 줘도 별로로 여긴다. 이는 걸어 다니면서 숲속으로 다녀야 ‘열매’도 따먹고 ‘나무’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들 몸과 생활에 안 맞으니 ‘차’가 필요 없어서 버린다. 발달된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나 ‘차, 비행기, 빌딩, 도로’가 필요하다. 일을 보러 멀리 가려니 ‘차, 비행기, 도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기성인들>에게는 ‘새 말씀, 새 지도자’가 필요 없다. <새 역사로 온 자들>에게만 ‘새 말씀,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

29. 아기에게는 ‘고기’가 안 맞고 ‘부드러운 음식’이 맞다. <저 기성인들>은 ‘어린이’와 같다. <새 역사에 온 자들>은 ‘성장한 청년’과 같다. 고로 먹는 말씀도 차원이 높고 깊다.

30. 기성인들에게 ‘발달된 새 시대의 문화와 말씀’을 줘도 사용하지 못한다. ‘새 시대의 것’을 배움으로 <뇌의 체질과 사고>와 행동을 ‘새 시대 식’으로 바꿔야 ‘새 시대 문화와 말씀’을 사용한다.

31. 운전을 못 하는 자에게 ‘차’를 줘도 사용하지 못하듯이, <구시대의 사고와 습관과 행동>으로는 ‘시대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32. 부지런한 자가 누리는 것을 게으른 자에게 줘도 못 누린다.

33. 게으른 남자에게 ‘예쁘고 멋지고 부지런한 여자’를 주었다. 그러나 게으른 남자는 잠만 자고 누워만 있었다. 여자는 온종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사니, 가만히 있기만 하는 남자는 여자를 만날 수 없었다. 게으른 남자가 가끔 부지런할 때만 여자를 만날 수 있었다. <성자>와 <새 역사로 온 신부들>도 그러하다.

34. <하나님의 새 역사>가 왔어도 ‘부지런한 자, 열심히 뛰고 달리는 자’만 <성자>를 맞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

35. 구시대들은 게으르고, 새로운 것에 우둔하고 감각이 없고, 느리고, 무지해서 ‘새 시대의 것들’을 못 누린다.

36. ‘소고기 반찬과 딱딱한 음식’이 늘비해도 <노인들>은 집었다가도 못 먹고 도로 놓는다. 이와 같이 ‘새 시대 하나님’의 진수성찬 말씀’이 풍부해도 <구시대인들>은 못 먹고 피한다. 그래서 <구시대인들>과 <새 시대인들>은 같이 못 산다. 그러니 위치도 쪼개고, 집도 쪼개고, 환경도 쪼개서 따로 쓴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도 완전히 따로 쪼개서 따로 쓰면서 산다.

37. <새 시대 섭리역사>는 구시대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나왔다. 이제 부지런히 ‘새 시대를 찾는 자들’을 찾아서 가르치고 <새 시대 섭리역사>에 와서 살게 하자!

<2015년 2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38. 지금 이 시대는 <완전한 성약 섭리역사 시대>다. <성자 시대>다. 섭리역사가 무덤 기간을 완전히 벗어나 부활되고, 구시대에서 완전히 독립해서 나온 <부활 시대>다. <휴거 시대>다.

39. 구시대인들은 ‘구시대 문화와 말씀’이 체질에 배어 그 체질대로 좋아하며 살아간다. 그들이 ‘새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거든 받아 주고, 너희는 어서 완전하게 행함으로 혼과 영을 완전히 변화시켜 <남은 휴거>를 이루어 <영원한 천국 기업>을 받아라.

40. 구시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니, 이제 그만 생각하련다. 찬란하게 펼쳐진 <성약 섭리역사의 앞날>을 생각하며 희망으로 뛰고 달리자!

41. 이제 ‘성자’를 맞고 사랑하고 ‘휴거’를 이루며 ‘시대의 복’을 받고 살기 바쁘다. 지난 36년 동안 성자와 함께 섭리 역사를 펴 나가면서 구시대를 향해서 그렇게도 외쳤다. 그러면 많이 해 준 것이다.
42. 게으르고, 자기 사고와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 <새 역사 축복의 땅>이 눈에 보이고, 그 땅에 <실한 열매들>이 널려 있어도 <메마른 땅>에서 <쥐엄 열매>를 먹고 산다.
43. 주가 다시 오시면, 육신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믿고 사는 자들을 쳐다보면 참 불쌍하다. <허황된 생각>과 <환상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니, 주를 맞을 수 있겠느냐.
44. 미친 사람은 <허황된 생각>으로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혼자 웃어 댄다. 왜 그러는지 나는 다 안다. <허황된 그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질 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리도 좋아하는 것이다. 그 육신을 ‘성자’가 주관하신다면, 절대 그리하지 않으리라. ‘미친 영’이 그 육신을 주관하며 같이 살고 있으니, 그리도 <허황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좋아하며 살고 있다.
45. <잘못된 교리>에 빠진 자들을 보아라. ‘허황된 생각’에 빠져 기뻐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나, 그 영을 보면 ‘의의 옷’을 입지 못하여 거지로 살아간다. 영계에서 보아라.
46.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가면서 ‘큰 희망’을 품고 기뻐하며 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의 끝>이 어떤지 알고 있기에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뭐가 그리 기뻐서 희망차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이 길을 가면서 그리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산만 넘으면 이상세계가 있다고 하기에 가는 중입니다.” 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말해 주었다. “이 산을 넘어가면 완전히 <잡초 세계>이고 <뱀 소굴>입니다. 사람도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그곳에 가서 온천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마사지도 받으려 합니다. 외국에서 온 마사지 전문가들도 엄청 많다고 하던데요? 저는 거기 가서 연애도 하고 놀려고 합니다.” 했다. <그릇된 사고>와 <환상>에 ‘뇌와 마음과 생각’이 미쳐 있었다. 나는 그가 어디에서 사는지 이미 짐작을 하고 어디에서 사느냐고 물으니, 그는 “큰 성에 삽니다.” 했다. 역시 내 짐작대로 <구시대 기성>에 사는 자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 골짜기에서 해매고, 가시덤불에서 해매다 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잡시다.” 했다.
47. 저 기성은 부패되었다. 크게 무너졌다. 다시 일어나지를 못하고 흘러가고 있다. ‘교만, 시기, 미움, 분노’로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다.
48. 기성아. 너희가 전에 그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불신한 자가 생각나게 되리라.
49.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잔치하고, <음부에 사는 자들>이 그 잔치집에 줄지어 찾아온다. ‘성자가 보낸 자’를 거역하고 불신한 연고다.
50. <때>가 되니 기성에는‘까치’가 날아가고 ‘까마귀’가 날아든다. 기성의 시대는 갔다. 완전한 새 시대다.
51. <하나님의 정한 날>이 되니 ‘해’가 떠서 땅에 비추매,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정·녕·코’ 이 시대에 이루신다.
52. <휴거>는 현실이다. ‘육’으로도 이루고 ‘영’으로도 이룬다.
53. <사망에 거한 자들>은 깊이 잠든 상태에서 육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새 시대 해>가 떠서 비추어도 모르고 살아간다.
54. <시대의 잠을 깬 자들>만 ‘신랑 되신 성자’를 맞고 ‘이상세계’에서 살아간다. 성경 말씀대로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받는다. 자기가 결정한 대로 운명이 갈렸다. 곤고한 날에 주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했노라.

55. <계절>이 바뀌면 ‘살아 있는 만물’은 소생한다. 이와 같이 <새 시대>로 바뀌면 ‘살아 있는 육신과 영혼’은 다 소생하게 된다. 살아 있는 자들은 <새 시대의 외침>을 듣고 따라온다.

56. <기성의 해 그늘>에서 자기 갈 길 가기 바쁜 자들을 부르지 말아라. 오다가 죽는다. 무덤을 향해 가도록 그냥 놔둬라. <해 뜨는 동쪽>에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새 역사의 길’을 안내해 주어 ‘새 역사 잔치집’에 찾아오게 하여라.

57. 이제 ‘구시대 무리’가 가고 ‘새 시대 무리’가 온다.

58. ‘택한 자들’이 몰려오는구나. ‘하나님과 성자가 택한 자들’이다. 이들이나 부지런히 키우고, 가르치고, 돕고, 관리해서 ‘역사의 대’를 이어 가게 하자.

59.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리라. 그러나 말할 것 없다. 자신이 결정해서 오게 하자.

<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물’과 같다. 쓰는 대로 없어진다.

2. <은혜의 시간>도 때가 되면, ‘바다의 밀물’같이 밀려왔다가 ‘바다의 썰물’같이 밀려간다.

3. 인간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맞춰서 행해야 된다.

4. 인간이 <만물의 때, 만물의 시간>을 맞춰서 행하듯, <자기 시간>을 맞춰서 행하려 하지 말고 <성삼위의 시간>에 맞춰서 행해라.

5. <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쓴 표’가 나고 ‘유익’이 좌우된다.

6. <시간> 다스리기. <자기> 다스리기. <그에 따른 일> 다스리기다.

7. <시간>은 ‘자기 것’이다. 고로 자기가 쓰고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8. 무엇이든지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야 다스리고 주관한다. <시간>도 그러하다.

9. 글을 써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글자나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글자가 틀리지 않았어도 거기서는 필요가 없어서 ‘죽은 글자, 죽은 문구’가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필요 없는 곳’에 있으면, 틀린 일을 안 해도 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 ‘죽은 삶’이 된다.

10. 자기가 ‘그 자리’에 필요한지 보아라. - <자기 이름>을 쓸 때 ‘다른 글자 한 자’만 들어가도 필요가 없어서 ‘그 글자’를 빼내게 된다. - 이와 같이 ‘거기에 필요 없는 사람’은 빼내게 된다. 고로 항상 스스로 처세하기다.

11. 축구 경기는 ‘11명의 축구 선수’가 뛰다. 현재 11명이 뛰고 있으면, 축구 선수라도 거기에는 못 낀다. 이때는 혼자 뛰더라도 ‘자기 위치’로 가서 뛰는 것이 유익이다. <선수>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듯이, <사명자>라면 구경꾼이 되지 말고 ‘자기가 필요한 위치’에 가서 뛰어라.

12. 농사를 지으면 일이 많아지듯이, 전도해야 일이 많아진다. 할 일이 없으면 영원히 빛나는 일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라. - 그러면 <자기>도 크고 <생명>도 크니, 희망이다.

13. 자기가 낳은 자녀는 귀히 여기고 잘 기른다. 이와 같이 자기가 전도한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잘 기르게 된다.

14. 자기가 전도한 생명이라도 반드시 ‘하늘 중심, 구원자 중심’으로 키워야 목적을 달성한다.

15. <배>에 ‘돛’을 달듯이, <뇌, 생각> 중심에 ‘성자와 구원자의 돛’을 달아라. 그래야 인생 파도에 밀려가지 않고, 힘들지 않고, 힘들게 노 젓는 운명을 벗어나 멋있게 항해한다.

16. <자기 중심>에 ‘성자와 구원자의 돛’을 달아야, 성령님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며 돛을 밀어 주신다. 항상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성자와 주의 생각>대로 ‘돛의 방향’을 돌리기도.

17. 생명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배우기’다. 배움으로 ‘알고 행하기’다. 배워야 알게 된다. 배워서 알아야 행하게 된다.

18. <하나님과 성자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쓰면서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하려 한다. ‘전능자의 생각’을 쓰지 않고 ‘자기 생각’을 중심해서 행하면, 항상 <흑암의 바다>다. ‘전능자의 생각’을 쓰면서 ‘자기 몸’을 쓰기도. 그래야 ‘신의 마음과 신의 몸’이 되어 <신과 같은 차원>에서 살게 된다.

<2015년 2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삼위일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역사하신다. 첫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주어 방향을 알려 주며 행하게 하신다. 둘째, 삼위의 뜻대로 <생각>나게 하신다. 셋째, <만물>을 통해 보여 주며 말씀하여 행하게 하신다. 넷째, <보여 줄 만물>이 없을 때는 <감동>으로 도우시며 행하게 하신다. / 어느 때는 <보여 줄 만물>이 있어도 감동을 잘 받는 자들에게는 <감동>만 주시며 행하게 하신다. 다섯째, 감동을 줘도 안 하면 <여건>을 틀어 역사하신다. 어느 때는 <감동의 역사>만 하신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3. <감동>으로 역사하시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감동>을 주시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마음에 감동되고 느껴진다.

5. 삼위일체가 <감동>을 주셔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육적으로 생각되고 육적으로 행하게 된다.

6. 삼위일체가 <감동>을 주셔도 ‘자기 환경과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7. 삼위일체는 특히 사고 전에, 위급할 때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8. <감동>을 잊으면 죽는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삼위의 생각’을 <감동>으로 전해 주셨든지 ‘하고자 하는 말’을 <감동>으로 전해 주셨으면, ‘삼위의 몸’이 친히 자기에게 온 것이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감동>을 받았으면, 즉시 ‘성자와 주’를 부르고 대화하면서 행해야 된다.

11. 감동됐을 때 행해라.

12. 성자의 뜻대로 행하면 감동된다.

13. <감동>만 기다리지 말고, 성자의 뜻대로 행해라. 행하면 감동된다.

14. <자기가 책임을 해야 할 것>은 ‘자기’가 해야 감동되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해당되는 것>은 ‘삼위’가 감동시키신다.

15. <감동>을 받으면 ‘성자의 뜻’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16.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신이 역사하시니 몸이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훈훈하거나, 짜릿하거나, 눈물이 나는 등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순간의 반응’이 실제로 일어난다.

17. 삼위일체는 <감동>을 주시며, 하기 싫게 하여 그 일을 안 하게 해 주기도 하시고, 하고 싶게 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해 주기도 하신다.

18. 삼위일체는 <감동>으로 말씀하시니, <감동 자체>가 ‘삼위의 말씀’이다.

19. 감동을 받으면, 정말 <삼위가 주시는 감동>이 맞는지 분별해라. <삼위가 주시는 감동>이면 즉시 행해라.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하나님과 성자의 일>을 하려 할 때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다. 이때 기도해라. 기도하면 <감동>이 온다. ‘하고 싶은 마음’은 커지고 ‘하기 싫은 마음’은 사라진다.

21. <공적인 일>을 할 때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며 계산해라. 그러면 ‘100% 해야 될 일’인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인지 분별된다.

22. <밭 값>이 비싸도 <밭 속에 묻힌 보화>를 생각해라. <밭 값>이 비싸도 <밭>을 사면 <밭에 묻힌 보화>를 얻게 되니, 엄청난 유익이다.

23. <보화>는 쓰는 만큼 ‘더욱 귀한 보화’다.

24. <보화>를 얻었으면 귀히 써라. 그래야 보화로서 가치를 발한다.

25. <성자의 말씀>은 영원한 보화다. 써먹고 행해야 보화로서 가치를 발한다.

26. <주>는 영원한 보화다. ‘주의 가치’를 알고, ‘사명’을 알고, 그를 ‘자기의 중심’에 뒀야 보화로서 가치를 발한다.

27. <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은 차원 높게 생각하고 깨닫게 하며, 잘 계산하여 분별하게 한다.

28. 삼위일체가 <감동>을 주실 때는 ‘삼위일체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와 닿는다. 그때는 마치 ‘햇빛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과 같다.

29. <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즉시 성자와 주와 대화하여 확인해라. 그리고 ‘그 감동’에 집중하여 감동대로 행해라.

30.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때, 삼위일체는 <감동>을 주시며 피하게 하신다. 이때는 ‘어른’이 있어도 ‘어린이’에게 감동을 주어 피하게 하기도 하신다. 상황에 따라서 ‘어린이’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31. 삼위일체는 특히 위급한 순간에,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때 <강렬한 감동>을 주며 피하게 하신다. 순간 아프게 하거나, 순간 넘어지게 하거나, 누가 때리게 하거나, 하던 일이 틀어지게 하거나, 누가 혼을 내게 하는 등 각종 방법을 총동원하여 <감동>을 주시며 그 자리를 피하게 하며 도우신다.

32. ‘어른’이 있어도 ‘어린이’에게 감동을 주며 위급한 상황을 피하게 하여 살리신다. 이는 성자가 그 아이를 키우시기 때문이다. 또한 삼위일체가 자기와 함께하여 자기를 살리셨듯이,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이 도우시고, 잘되게 하시고, 육뿐만 아니라 영도 구원하여 잘되게 해 주신다고 삼위일체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33. <성자가 택하신 자>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히 지키신다.
34. ‘택한 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
35. ‘처’를 보고서 ‘처갓집’을 돕듯이, ‘택한 자’를 보고서 ‘그 가정, 부모, 형제’를 도우신다.
36. <감동>을 줬는데도 안 하면, ‘하던 일’이 틀어지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 - 그런데도 계속 <자기 할 일>을 하면, 그때는 책망하면서 ‘매’로 때리신다.
37.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되어 못 가게 막으실 때도 있지만, ‘삼위일체의 뜻’을 전하기 위해 가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
38. 어느 때는 마치 열차가 달리는 건널목을 못 건너가게 막듯이, 순간 <감동>을 주어 막으실 때도 있다. 이는 ‘위험한 것을 피한 후에 가라.’ 함이고, ‘하늘의 뜻대로 해라.’ 함이다.
39. 삼위일체를 항상 생각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는 것’이 곧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똑같다. 늘 생각해야 <감동>을 주면 바로 안다.
40. <감동>을 크고 강하게 받아야 행해진다.
41. <감동>을 크고 강하게 받으려면, 기도해라.
42. 기도하면 말씀을 듣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감동>을 강하게 받고, 그 힘으로 즉시 행하게 된다.
43.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지?” 하게 된다. - 곤고할 때는 생각해라. 삼위가 <감동>을 주셨는데도 ‘그 감동’을 못 받아 못 행하니 일이 잘 안 된 것이다. 혹은 <삼위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안 된 것이다.
44. <감동>을 강하게 받아야 ‘그 감동’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행하여 하는 일이 잘된다. 고로 기도해라. 마치 물을 끓이듯, <생각>을 뜨겁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만들어라.
45. 물을 안 끓이면, 음식도 못 한다. 이와 같이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감동을 못 받아서 못 행한다.
46. 전도할 때도 ‘뜻 있는 생명’이 있으면, <전도자>도 감동시키시고 <전도될 대상>도 감동시키신다. 그러나 그 감동은 ‘순간’이다. 고로 감동받으면, 즉시 행하여 ‘정말 뜻 있는 생명’인지 확인해라.
47. <감동>은 ‘행할 때’ 더욱 강하게 온다.
48. 전도하려면, 나가서 전도해야 <감동>이 더욱 강하게 온다.
49. 휴거되려면, 자꾸 행해야 감동이 강하게 와서 더욱 행함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휴거를 완성하게 된다.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50. <삼위가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삼위의 뜻>을 행한다.

51.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감동>에 둔하다.
52. 육적인 자는 <감동>에 둔하고 <감동>을 약하게 받는다.
53. 육적인 자란, '성자와 주를 열을 내서 사랑하지 않는 자'다. '성자의 뜻을 벗어나 자기 주관대로 사는 자'다. '생활 속에서 성자와 주를 생각하지 않는 자'다.
54. 육적인 자는 <감동>을 못 받으니, 삼위일체는 '영적인 자'를 먼저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을 '육적인 자'에게 전달하게 하신다.
5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적인 자'에게 <감동>을 주어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전하는 사명을 주어 '육적인 자들'을 깨우쳐 주신다.
56. 삼위일체는 '그 환경에 처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합당한 자'를 '영적인 자'로 택하여 쓰신다.
57. <감동>을 받았어도 감동이 약하면 기도해라. '뜻 있는 것'이라면 기도할 때 <강한 감동>이 오게 된다.
58. <삼위가 주시는 감동>을 귀히 여기고 배우고 깨달아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감동>을 많이 주신다.
59.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충만한 감동>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 주신다.
60. '성령님'만 <감동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자'도 '성령'과 함께 <감동>으로 역사하신다.
61. 강하게 감동이 될 때는 '삼위의 신이 자기 마음에 와 닿은 것'이며, '삼위의 신이 자기에게 직접 오신 것'이다.
62. <감동>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불러라.
63. 기도할 때나 평소애나 '성자'만 불러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며 역사하신다. 삼위일체는 하나 되어 역사하신다.
64. 삼위는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신다.
65. <자기 마음이 스스로 자극되어 받는 감동>과 <삼위일체가 역사하여 주시는 감동>은 다르다. <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은 '신적인 느낌'이 들면서 오고, <자기 육적인 감동과 생각>은 '육적인 느낌'이 들면서 온다. 분별해라.
66.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삼위일체가 주시는 감동>인지 꼭 분별해야 된다. <사탄>은 자체가 '두려운 영'이며 '불안한 영'이다. 고로 사탄이 오면, 그 영향을 받아서 두렵고 불안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편안한 영'이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감동이 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의 처지에 따라서 '삼위의 뜻'이 깨달아진다.
67. <감동>에 대해서도 배워야 삼위께서 쉽게 <감동의 역사>를 하신다.
68. 삼위일체가 감동을 주심은 첫째, '꼭 해야 할 것'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셋째, '잘못된 길'을 못 가게 막고 '잘못된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함이다.
69. <뇌>가 '돌'같이 굳어 있으면, <감동>을 줘도 못 느낀다. 그때는 <육체>에 따끔하게 자극을 주거나 고통을 주어 느끼게 하고, <천사>를 통해서 채찍질하여 이끌어 내신다.
70. <감동>을 신경 쓰지 않고 귀히 여기지 않으니, 삼위는 <감동>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71. ‘비진리’를 접할 때나 ‘악평자의 말과 글’을 접할 때, 삼위일체는 “읽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하며 강하게 감동을 주신다.

72. <거짓>으로는 <진실>을 분별하지 못한다.

73. <악>으로는 <선>을 분별하지 못한다.

74. <시대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해라. 삼위가 너를 인도하신다.

75. <진리>에 확실히 서지 못한 자,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주>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자는 ‘악평과 비진리’에 흔들린다.

76. <악평, 거짓된 말, 비진리>도 자꾸 접하고 들으면,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니 <휴거>가 아주 늦어지고, 더 나아가 아예 <휴거>를 뺏기게 된다.

77. <삼위일체의 감동>을 잊지 말아라.

78. <감동>에 대해 배우고, <감동>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동>을 생명시하고 살아라.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구약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추었다는 성경의 표적은 ‘태양’과는 상관없다.

2. 시대적으로 태양이 돈다고 주장했던 <천동설 시대>이기 때문에 태양을 멈추게 했다고 말한 것이다.

3.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표적은 ‘태양’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 주신 시간적 표적’이다.

4. <태양>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간다.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이 아니다. <표현>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실상은 지구가 자전을 하니, 태양이 점점 더 보였다가 안 보이는 것이다.

5. <태양>이 <지구> 가까이 온 것이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삼위>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보다 <인간>이 기도하고, 성삼위에 대해서 배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삼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성삼위가 자기에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인식한다.

6. <왕>이 <백성들>에게 찾아가기도 하지만, 거의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왕> 앞에 찾아가서 보게 된다.

7. <인간>이 조건을 세워 기도하고 간구하면, <지구>가 <태양> 가까이 가듯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이것을 흔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왔다.’라고 표현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생각>으로 찾아가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여 마치 ‘신의 본체’가 온 것같이 느끼게 하신다. <전파>가 연결돼야 통화가 되듯이, <영의 파장>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아야 오신다.

9. <육신>이 어떤 한 장소에 있어도 <혼과 영>을 부르면 <혼과 영>이 찾아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가 하늘 보좌에 있어도 이 세상에서 누가 간절히 부르고 찾으면 ① <하나님은 혼체 같은 존재>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② TV를 켜면 전파를 타고 화면이 켜지듯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비유로 보여 주기도 하시고, ③ <하나님의 생각>을 보내어 생각나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④ <감동>을 주어 역사하기도 하신다. <전능자가 나타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만물>을 쓰고, 혹은 <사람>을 쓰고 각종으로 나타나신다.

10. 상대성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11. 가령,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의 남성적 모양’을 닮는 것은 싫어한다. 자기 생각을 닮되, 상대성으로 여자로서의 미를 갖추고 자신의 상대체’가 되기를 원한다.

12.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을 닮되, 삼위의 상대성으로 <신부>로서 갖추고 삼위의 사랑의 상대체’가 되기를 원하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이 <삼위>를 닮되, 상대성으로 ‘신부’로서 갖추게 하여 100% 만족하게 사랑하신다.

14. 한 남자가 ‘자기 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여자’를 택했다 하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택하였으니 만족하고 다 사랑한다. -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간>을 절대 ‘삼위의 형상’으로 창조했기에 100% 좋아하고 사랑하신다.

15. <인간의 육>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혼과 영>이 ‘삼위의 마음’에 맞게 ‘삼위의 형체’로 변화되어 완전히 만들어진다.

<2015년 2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의 구조, 모양, 형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완전하게 살 수 있다.

2.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구조, 모양, 형상의 문제’로 완전하게 살 수 없었을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 모양, 형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니, 자기가 행하고자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

4.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구조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법>을 배워라.

5. <하나님의 법>을 배워 알고도 ‘죄’를 지으며 완전하게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는 ‘생각과 행위’가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사람들이 만든 <차>도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운전이 미숙하고, 혹은 정신 차리고 운전하지 않기에 ‘사고’가 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 지체의 구조>를 ‘삼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기술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하고, 정신과 행위가 성장되지 못한 채 살고, 미숙하게 행하니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고’를 당하고, ‘고생’하고, 죽기까지 한다.

7.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조와 모양과 형상>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으니, 마치 절벽 위의 좁은 길에서 조심해서 운전하고 가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생각과 행위’를 다스리며 인생 운전을 잘해야 된다.

8.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 <차>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되, <차를 완전하게 운전하고 쓰는 것>은 ‘차 주인 책임’이다. <인간>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여 만들어 주셨어도, <자기 몸과 생각을 완전하게 쓰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아멘.)

9. 차의 완전함을 좌우하는 것은 운전대다. 인간은 생각이 운전대다. 생각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완전함이 좌우된다. 그리고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는 인간의 생각 절제와 허용이다. (아멘.)

10. 인간은 ‘뇌 성장’에 따라서 더욱 완전해진다.

11. 저마다 '뇌와 생각'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인생이 완전해진다.

12. 어떤 사람은 <몸>은 운동하여 더욱 완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마음과 정신>은 그만큼 완전하게 만들지 못하여 <그 멋진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생활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받고 고생하며 어렵게 산다.

13. 운동하여 <몸>도 <건강>도 좋은데, <운전하는 것>은 미숙하거나 운전할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수시로 사고를 내는 사람이 있다. - 이와 같이 운동하여 <몸>은 튼튼하고 멋있는데, <인생 삶의 운전>은 너무도 미숙하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육도 영도 손해다.

14.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셨다. - 이 말을 듣고 흔히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한다. 창조주께서 '인간의 구조와 형상'을 완전하게 만들었으니, '완전하게 할 자료'는 있다. <자료>가 있으니 완전하게 할 수 있다.

15. <자료>가 없으면 못 한다. '구조와 형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러나 '완전한 구조와 형상'이 있으니 할 수 있다.

16. 평소에 늘 잘하지 못하더라도 '완전하게 잘할 때'가 가끔 있다. 그때를 보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정신 차리지 않거나, 정신 줄을 놓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마음이 나태하거나, 자기가 하기 싫어하면, 그때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다.

17.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막상 해 보면 일어나진다.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자기가 싫어하니 못 일어나는 것이다.

18. 대부분 자동차들을 보면, <속도계>가 최대 '시속 180~250km'까지 되어 있다. <차의 구조와 성능>은 밟는 만큼 더 달릴 수 있지만, 본인이 '시속 70, 80, 100km'까지만 밟고 다니니 그만큼만 달리는 것이다. <자기라는 차>도 하면 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평소에 가끔 '완전하게 됐다!' 하면, 그것이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다. 하나님은 "너의 구조와 형상은 전능자같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로 너만 완전하게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완전하게 행해라." 하고 매일 말씀하신다. 행하면 완전하게 된다. - 삶도, 휴거도, 작품을 만드는 것도, 무엇을 사는 것이나 파는 것도 그러하다.

<2015년 2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뇌>가 흥분되면, 기쁘다.

2. <상체 뇌>가 흥분되면 '정신세계'로 힘이 흐르고, <하체>가 흥분되면 '육체 세계'로 힘이 흐른다.

3. <힘>은 두 가지로 온다. 첫째 '육체'에서 오고, 둘째 '정신'에서 온다.

4. <정신적 감각>이 예리해야 '정신력'이 강해진다.

5. <목적>이 뚜렷하고 강한 그 강도에 따라 '정신력'이 좌우된다.

6. <자기 목적>이 뚜렷하면 '육체적 힘, 정신적 힘'도 강하고, <자기 목적>이 보통이면 '육체적 힘, 정신적 힘'도 약하다.

7. 또한 <정신과 생각>이 예리하고 깊고 높으면 '육체적, 정신적 힘'이 강하고, <정신과 생각>이 차원이 낮고 둔하면 '육체적, 정신적 힘'도 약하다. - <힘>에 있어서 '육적으로 먹는 것, 운동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8. <사랑>도 행해야 흥분된다. <목적>을 두고도 행해야 얻는다.

9. <사랑의 기쁨의 에너지>와 <삶의 기쁨의 에너지>는 한 덩어리다. 둘 다 ‘그것을 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흥분되고 기쁨을 얻는다. ‘그것’을 완성하면 <극의 기쁨>을 얻는다.

10.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료인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도 ‘사랑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목적’이 있어도 ‘삶의 희락’을 느끼지 못한다.

11. <사랑>도 ‘하는 자’만 느끼듯, <목적>도 ‘행하는 자’만 달성한다.

12.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흥분>과 <삶의 흥분>을 같이 넣고 창조하셨다. 고로 인간은 사랑하면 기쁘고 흥분되고, 생각하면 기쁘고 흥분되고, 행하면 기쁘고 흥분되는 것이다.

13.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도 ‘인생 곤고함’와 ‘근본의 심령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14. <환경 천국>을 만들어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는 <마음 천국>을 만들어서 기쁘고 희망차야 된다.

15. <마음 자체>가 뜨겁게 끓지 않으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느낌도 즐거움도 별로다.

16. <마음>이 기쁨과 희망에 불타야 ‘보는 모든 것들’도 희망차게 보이고 느끼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내가 꿈꾸며 희망하고 그리던 바위요, 나무요, 물이요, 환경이다.

18.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과 존재물’을 얻으면 처음에는 그렇게도 기뻐하며 만족해도, 얼마 못 가서 그 만족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또 찾게 된다. -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희망했던 것’이라도 그것을 막상 접하면, 그 희망과 기쁨이 사라진다.

19. <마음과 생각>이 들끓어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만물>도 <모든 환경>도 기쁨과 희망으로 보이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살게 된다.

20. <시력>이 좋아야 ‘보이는 것들’이 제대로 보여서 기쁘다. - 이와 같이 <마음의 시력인 생각>이 좋아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접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귀하게, 가치 있게 보이고 느껴진다.

21. 건강해야 ‘먹는 모든 음식의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듯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해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느끼고 깨닫게 된다.

22. <아무리 아름답고 귀하고 신비한 것>이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라도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자기 차원’대로밖에 안 보인다.

23. 어린아이는 <지체>가 성장되지 않아서 ‘구조’가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제 기능’도 못 한다. <뇌>도 성장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 신앙 세계에서도 ‘그쪽 분야를 모르고, 갖추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자들’은 ‘그쪽 분야에서는 소경’이다. 그 사람이 제대로 못 보고 실수하면,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전체>를 배우고 <전체>를 잘해야 <전체>가 유익이다.

<2015년 3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식사 때 ‘볶은 고추’를 먹는데, 매운 것은 너무 매웠다. 그래서 ‘맵게 생긴 것들’을 골라 놓고, 성자에게 “저는 안 매운 고추를 먹을 테니, 성자는 매운 고추를 드세요.” 했다. 성자는 “왜 나에게 매운 것을 먹으라고 하느냐. 합당하면 먹겠다.” 하셨습니다. “신은 매워도 안 맵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정말 못됐다. 너는 먹으면

매워서 혀를 내두를 것인데, 나는 신이라서 괜찮으니 그걸 먹으라고 하느냐. 나를 <신>으로만 생각하고 <인간> 대접하듯 안 하면, 결국 나를 푸대접하게 된다.” 하셨다.

2.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신>이니 ‘더운 여름’에 ‘더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서 자기는 ‘그늘’에 들어가 있고, 신은 ‘땀별’에 계시라고 한다. 왜? 전능하신 신은 ‘햇별’을 다스리시고, 또 <신>이니 ‘기후’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니 그리 대하는 것이다. <신>이 ‘인간의 음식’을 드시겠느냐. <신>이 ‘기후나 날씨의 영향’을 받으시겠느냐. 아니다. 그러나 ‘신은 배도 안 고프니까. 날씨 영향 안 받으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까.’ 하고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인간>을 대하듯 대하지 않으니, 결국 푸대접하는 꼴이 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좋은 것을 대접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정성껏 잘 대하고 모시고 사랑해라.

4.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니 걱정도 염려도 없고, 어떤 환경에 가도 제재받지 않으니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삼위를 대하고, 모시고, 사랑하고, 믿고 있다.

5. 사람들은 삼위를 믿으면서도 ‘신은 인간이 아니니 <썩은 물>에 들어가셔도 <오물장>에 가셔도 냄새를 초월하시니 괜찮다.’ 하고 대한다. 그러니 <삼위의 심정>을 모른다. 고로 ‘썩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하나의 당연한 생활’로 알고 사는 것이다.

6. 전능자는 <신>이라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받으시며 행하신다. 그 래야 인간을 다스리고 주관하며,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기 때문이다.

7.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 세상의 인간과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고 느낀다면, ‘인간의 마음’도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다.

8.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기쁨’을 다 느끼고 알고 인간을 대하시려고, 늘 인간을 쓰고 다니신다. 고로 삼위일체를 대할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사람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

9. <사람>에게 나쁜 것이면, <삼위>도 그대로 보고 느끼신다.

10. 자기는 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는데, 삼위일체는 전능하시니 추운 것과 상관없다 하며 ‘냉방’을 준다면, 삼위일체는 인간같이 떨고 계신다고 생각해라. 삼위일체를 대할 때는 <신>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을 대하듯 <귀한 자>를 대하듯, 모시고 섬기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참신앙의 삶이다. 깊고 귀한 인봉이다.

<2015년 3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죄에 대해, 의에 대해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고로 <심판 때>에는 심판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신혼골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아라.

2.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보는 답안지>와 같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 나니 피해라.” 하며, 미리 알려 주고 피하게 하는 말씀이다.

4. 하나님의 말씀은 <성공>을 앞두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하며 미리 실패할 것들을 알려 주고 성공하게 하는 말씀이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주어 축복받게 하는 말씀이다.

6. <왕의 조서>는 ‘어린 자’가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 내용>까지 ‘어린 자의 수준’으로 보지 말아라.

7.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항상 ‘어린 자’가 <왕이신 하나님의 조서, 곧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를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생명들을 구하는 사도>로 쓰신다.
8.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선지자’나 ‘하늘이 보낸 자들’은 <자기 주관권>이나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며 뜻을 이루신다.
9. <하나님 주관권>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지켜 행해야 된다.
10.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여라.
11. 여호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12. <절대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크며, 어느 누구보다도 큰 자이다.
13. <하나님의 가치>는 인간 차원에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14.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가치를 매긴다.
15. 절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한다. 그러나 ‘자기 주관적, 상대적’으로는 그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16.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자기 삶 속에서 그 가치대로 대하지 않고, 그 가치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는 그것을 별 가치 없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것>을 귀히 대하며 거기에 ‘중심’을 두고 행하기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을 귀히 대하며 거기에 ‘중심’이 쏠려 행한다.
18. 오직 여호와를 중심해라. - 이 말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기준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이다.
19.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존재’라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
20. <갓난아기>는 건강하기만 해도 장하다고 한다. 그러나 갓난아기가 크면, 건강한 것 이상을 바라게 된다. - 이와 같이 우리의 차원이 높아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바라시는 것이다.
21. (하나님)- <너의 중심>에 ‘나 여호와’가 완전히 있기를 원하노라.
22.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적 가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고 사랑하며, 가장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다.
23. 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것’이 절대적 가치라도,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것’을 더 중하게 여긴다. 고로 <자기 주관적 가치>에 더 중심을 두고 부지런하기보다 ‘잠을 더 자는 쪽’을 택한다.
24.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 인식과 가치’에 중심을 두고 행한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자기에겐 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적인 관, 주관적인 관’이 자기에겐 더 맞고, 더 좋고, 더 편하기 때문이다.
25.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우리에게 최고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고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신다. -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심정에 맞추어 사는 자는 영원히 복된 자다. <천국 황금성>을 받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자다.

26.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것을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고하며 함께 행하기를 원하신다. - 이같이 행하면, 인간의 마음은 꺼림이 전혀 없는 천국이다.

<2015년 3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27. <잘못된 행위를 욕으로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

28. 여호와를 중심에 두지 않은 것, 고로 삼위의 심정을 상하게 한 것이 죄다.

29. 삼위의 사랑하는 대상이면서도 '삼위의 심정을 맞추지 못한 죄'가 그리도 크다.

30.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자기 중심'에 두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

31.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중심'에 두고, 그 사람의 말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

32.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

33.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자기 주관적 가치>를 더 귀히 여기며 그 생각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라.

34. <여호와를 최우선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35.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나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이다.

36.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 자기를 만들고자 하면서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살아간다.

37. 전에는 하루를 살다가 그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도 우리의 수준을 아시니, 하나님은 그 정도로도 기뻐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차원이 높아졌으니, 오직 여호와를 중심하고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

38. 차원을 높여서 새롭게 해야 <더 새로운 것>을 받는다.

39.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길이 막혀서 못 간다.

40. 새롭게 해야 <새 길, 희망의 길>이 나온다.

41. <하늘 신부>라면 '오직 하늘 신랑 중심'이다. 또한 <예전보다 차원 높은 신부>가 되었으니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 신랑의 심정이 상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 종들과 자녀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다.

42. <하늘 신부>로서 매사에 <하늘 신랑>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중심이 다른 데로 쏠려서 살아가니, 그 순간 '삼위와 교통'하지 못하고 '신랑이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한다. - 고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다.

43. <하늘 신랑>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을 늘 ‘자기 마음의 중심’에 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며 ‘네가 좋아하는 것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44. 삼위와 일체 되지 않으면, <자기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45. <다 큰 여자>가 <신랑>과 함께 있지 않으면, 강도가 취한다.

46.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지 않으면, 사탄이 넘보고 취한다.

47. <하늘 신부>가 <하늘 신랑>을 중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사탄과 놀아나는 격이다. 고로 하나님의 심정이 상하신다.

48. <성삼위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느끼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불편하다.

49. <하늘 신랑>의 심정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신부>다.

<2015년 3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50. 매일 잠들기 전에 여호와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51.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상하게 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발견하면 전심을 다해 회개하여라.

52. 매사에 여호와를 중심하지 않고 자기중심, 세상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산 것들이 ‘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53.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그리도 상하시는 것이다.

54.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고 기도하며, 하루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했는지 점검해라. 그리고 다음 날은 더욱 성삼위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여라.

55. 신랑과 신부인데, 따로 생각하고 따로 행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56. <여호와의 생각>은 늘 ‘사랑하는 신부’에게로 향한다. 그러니 자기만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한다면, 하루에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수없이 이루게 된다.

57.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인생>은 단 하루만 살아도 보람이다. 아깝지 않다.

58. <매사에 여호와를 중심에 두는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1년 동안 해도 못 이루는 뜻을 ‘단 하루’만에 이룬다.

59. <매초마다 여호와를 중심하는 자>는 매초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 고로 사탄이 1초도 틈타지 못한다.

60. <자기의 모든 순간>을 여호와께 고해라.

61. <자기의 모든 상황>을 여호와께 고해라.

62. <자기의 모든 감정>을 여호와께 고해라.

63. <자기의 모든 생각>을 여호와께 고해라.
64. 모든 것들을 하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수시로 무시로 통하며 사는 자가 <진짜 신부>다.
65. 여호와를 중심할수록 육도 영도 찬란히 빛난다.
66. <매사에 여호와를 중심하여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완전한 휴거의 육, 혼, 영'이 되고, 그 영이 '황금성에서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67. (하나님) 너는 나의 뜻을 이루려 하느냐. (잠시 쉬었다가) 그렇다면, 매사에 나 여호와를 너의 중심에 온전히 두어라.
68. '오직 하나님'이다.
69. 매일 매사에 여호와를 중심하여 살아서 '자기 삶 속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어라. 이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며, 최고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70.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늘 '최상의 것'을 주려 하신다. 하지만 <택한 자>라도 오직 여호와를 최우선에 두고 중심하여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을 받을 수 있다. 말씀대로 행하여 '그것'을 받고 누리며 살 아라.

<2015년 3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을 들으면 '자기 신조'로 삼고 '자기 몸'으로 삼고, 매일 써야 된다. 그리고 전해 주어라.
2. <계시 말씀>도 한두 번 읽고 끝내면 읽는 그 순간만 내용을 알지, 그 후에는 바로 잊어버린다. 고로 읽을 때 '자기 신조'로 삼고 생활 속에 쓰고, 전해 주기도 하여라.
3. <신앙>은 '말씀을 얼마나 듣고, 깨닫고, 실천했느냐.'다.
4. 깨달은 만큼 보인다. 깨달은 만큼 느낀다.
5. <발에 묻힌 보화>를 깨달은 자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발'을 기어이 사게 된다. 이와 같이 <주>도 깨달아야 자기 소유인 '마음, 뜻, 목숨'을 다해서 사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6. <말씀>도 <계시>도 그냥 책 읽듯이 한두 번 읽지 말고, 깨달을 때까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어야 된다. 확실히 깨달았으면, '자기 신조'로 삼고 실천해야 그 말씀에 시동이 걸려서 살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육, 혼, 영을 변화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만든다.
7. <주>를 '겉'으로만 깨달으면 안 된다. '영'으로 깨달아야 '속'으로 깨달은 것이다. <주>를 '겉'으로 깨달아서 '육'으로만 보니 40% 선에서 알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결국 <주>에게 등을 돌린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모두 <주>를 '영'으로 깨달지 못한 자들이다.
8. <성자와 주>를 정말 깨달은 자는 '100억짜리 보화가 묻힌 발'을 '1억'을 주고 산 자다. 그 속에 묻힌 보화가 얼마짜리인지 아니, 절대 남에게 그냥 팔지 않는다.
9. 깨달은 자는 '베드로'처럼 <주>를 팔지 않는다.

10. 깨닫지 못한 자는 ‘가룟 유다’처럼 <주>를 판다.

11. 섭리사 안에서 아직도 <주>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반 이상이나 된다. 깨닫기 위해 한 달이고, 세 달이고 기도해라. 깨달으면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몸’이 되고, ‘주의 심정’을 알고 주와 하나 된다.

12. <주의 증인>은 회개하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주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해 주는 자다.

13. 깨달은 자가 전도해야 전도한 그 생명도 깨닫게 한다.

14. 전도한 생명이 가치를 모르고 나가는 이유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육적 차원’까지만 깨달았기 때문이다.

15. 선생이 ‘진짜 남자’인 것같이, 성자는 인생들을 신부 차원으로 구원하고 휴거시키시려고 본체의 몸을 쓰고 오셨다. 성자가 그 몸을 쓰고 오지 않으셨다면, <시대 말씀>을 절대 못 받는다. <섭리역사>를 못 이룬다. 한두 교회만 세우고 끝난다. <기성 말씀>에서 머물렀다가 끝나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은 한 개도 못 풀고 끝난다. <감나무>에서는 평생 ‘사과 열매’를 한 개도 못 따듯이, <성자의 육>이 아니라면 평생 ‘새 역사 말씀’도 못 받고 ‘새 역사 뜻’도 못 이룬다.

16. 깨달고 행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열매’가 열린다.

17. 깨달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힘, 능력, 지혜, 지식, 사랑’이 온다.

18.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눈치 채고 “저 사람은 육적인 자다.” 한다.

19. 깨달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저 사람은 영적인 자다.” 한다.

20. 음식의 맛을 보면 “싱겁다. 소금을 덜 넣었다. 간이 안 됐다.” 하고 알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 “깨달고 전한다. 못 깨달고 전한다. 휴거된 자다. 아니다.” 알게 된다.

21. 신령해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성삼위와 주>를 모시고 섬기고 위하고 믿고 사랑하게 된다.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사고>가 ‘자기’를 몰고 간다.

2. 고로 <자기 사고>를 없애라. <자기 생각, 자기 사고>가 ‘자기’를 그릇되게 몰고 가서 <사망>으로 보낸다.

3. <자기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삼위의 생각>으로 살아야 ‘자기 육, 혼, 영’을 <생명>으로 보내게 된다.

4. 자기가 자기 차를 몰고 다니듯, <자기 생각>이 ‘자기 육’을 몰고 다니며 산다.

5. <자기 사고>대로 ‘자기 육’이 가서 함께 존재한다. 그에 따라 ‘자기 혼과 영’도 그쪽으로 가서 존재한다.

6. <자기 그릇된 사고>를 없애기다.

7. <자기 사고>가 그릇됐는지 모르고, <자기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자기 그릇된 행위>로 인해 그 대가를 받는지 모르니, 없애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다. 고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 줘야 된다.

8. <뇌>가 ‘자기 생각’으로 굳어지면 그것을 좋아하면서 행하게 된다. 그러다가 뇌도 굳고, 생각도 굳고, 행실도 굳어서 그런 삶이 좋으니 그대로 살게 되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9. 개가 ‘똥’을 생각하면 ‘똥’만 찾아다닌다. 계속 ‘똥’을 먹다가 체질이 되면, 더 이상 ‘주인이 주는 밥’을 안 먹는다.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되면, 주인은 더러우니 팔아 버린다. 그 돈으로 ‘주인이 주는 밥을 먹는 개’를 산다.
10. 체질이 되면 나쁜 것인데도 좋아하며 행하고, 그것을 하면 기쁘다. 술 체질, 담배 체질, 이성 체질, 마약 체질, 환경 체질을 자기 속에서 끌어내지 못하고, 그것에 포로가 되어 산다. 이렇게 체질이 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옆에서 도와주기가 힘들고,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기가 힘들다. 본인이 해야 된다. 본인이 ‘불의’를 싫어하면 거기서 벗어나니 가능하다. 그러나 본인이 ‘불의’를 좋아하니 어렵다. 그런 자를 구하느니, ‘자기가 하려고 하는 다른 자’를 도와서 이끌어 내라. 그래야 시간 소모가 안 된다.
11.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차>가 작동하며 움직여야 된다. <차>가 시동이 걸리고 움직여야 <운전>을 하면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만일 <차>가 안 움직이면 <사람>이 차를 끌고 다녀야 된다. 이와 같이 <본인>이 안 하면 옆에서 누가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는 힘들어서 못 한다.
12. <구원자>도 ‘안 하는 자’는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을 주면, 본인이 듣고 행해야 된다.
13. 본인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숨을 쉬는 격’이다. 이는 ‘살아나서 다닐 수 있다는 증표’다.
14. <사랑>도 ‘본인’이 안 하고 ‘한쪽’만 해서는 못 하는 것이다.
15. <신앙>도 <구원>도 <휴거>도 ‘본인’이 안 하면, ‘구원자’가 이끌어도 안 되고, 옆에서 도와줘도 안 된다.
16. 본인이 하도록 가르쳐 주고, 깨닫도록 가르쳐 주어라.
17. 가령 <자기 뇌>가 TV, 음란물, 오락, 게임, 세상 문화, 이성 문화에 길들여져 그것이 체질이 되어 좋아서 행하면, 다른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안 보인다.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해야 만족하고, ‘자기 생각과 행위와 운명’이 그와 같이 바뀌어서 평생 <그 주관권의 삶>을 살게 된다. 일생 동안 그 길을 가니, 그로 인해 계속해서 손해가 가고 고통을 겪고 고생하고 괴롭다. 고로 본인이 하도록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살다가는 육도 손해, 영도 손해이며, 결국 영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혼체에 대해 가르쳐 주어 혼체로 자기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라. 불펜의 심이 다 되면 한 글자도 더 못 쓰듯이, ‘영’이 <사망의 세계>에 가면 뒤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온다고 가르쳐 주어라.

<2015년 3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는 대화다. ‘성삼위와 주와의 대화’다.
2. <기도>는 사랑이다. ‘성삼위와 주와의 사랑’이다.
3. 사람끼리도 ‘대화’가 없으면 멀어진다.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이 없으면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늘과도 그러하다.
4. <신부>라면, ‘늘 신랑과 함께’다. <하늘 신부>라면 하늘 신랑과 늘 대화하고, 신랑을 찾고 부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 고로 <기도>는 호흡과 같이 꼭 필요하다.
5. <기도>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한다. 고로 사람마다 <기도하는 목적>은 ‘각각’이다.
6. 그러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다. 고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다. - 곧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7. 어떤 문제를 놓고서, 자기 할 일을 놓고서, 얻을 것을 놓고서, 주가 맡기신 일을 놓고서, 자기 인생을 놓고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야 된다.

8. <기도>는 ‘하나님께 결재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9.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재하지 않으신다.

10. <기도>로 하늘 앞에 간절히 상황을 알려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되고 합당하면 결재하신다.

11.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재>만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다. - 고로 ‘천사들’도 돕고, ‘성령님’도 감동시키시고, ‘성자’도 역사하여 합당한 자들을 총동원하여 그때마다 행함으로 성공하게 한다.

12. 기도하여 <하나님의 결재>만 나면, 혹여 사탄이 막아도 ‘이미 하나님의 결재가 난 일’이니 정녕코 이루어진다.

13.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재를 받기 위해 <할 일>과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14. 하나님이 결재해 주시어 ‘자기가 구한 것’을 얻었다면,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더욱 가치 있게 쓰겠다고 약속해야 된다. 끝까지 감사하며 사랑하며 쓰겠다고 약속해야 된다. 그래야 결재해 주신다.

15. 자기가 그토록 원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라도 ‘더한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다. - 그때는 <밭>만 보지 말고, <밭 속에 묻힌 보화>가 있어서 ‘더한 값’을 줘야 하는지 잘 계산해라.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테니 달라고 하며 간구하고, 값을 지불하여 얻어라.

16. <하나님의 결재>는 ‘꿈’이나 ‘기도 중 감동’으로 온다. 혹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도 하신다. - <하나님의 결재>를 받으면, 즉시 자기 책임을 하며 실천해야 얻게 된다.

17.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잘못 닦아 놓으면 평생 불편하게 다닌다. 이와 같이 사람도 ‘길’이 잘못 들면 평생 고생한다.

18. <할 일>을 놓고서 <원하는 것>을 놓고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결재’가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 해라. 이렇게 길 이 들어야 된다.

19.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말씀이 아예 없는 곳’으로 보내서 1년, 3년,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한다.

20. <말씀>은 하나님이며 성자이며 주다.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만 ‘말씀이 있는 곳’, 곧 ‘성삼위와 주가 있는 곳’에 머물게 하신다.

<2015년 3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자기 할 일>을 놓고서 <원하는 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하나님은 결재해 주신다. 하나님이 결재해 주셔야 그 일을 진행하신다.

22. <하나님의 결재>는 ‘응답, 허락’이다.

23. 그러나 기도해도 늘 ‘결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24. 기도한 것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재해 주지 않으신다. 이것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결재해 주지 않으시는 보편적인 이유다.

25. 기도해도 하나님이 결재해 주지 않으시는 핵심 이유는 이것이다. '구할 때의 마음'과 '받은 후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다.
26.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애원한다. 주시기만 하면 끝까지 감사하며, 주신 성삼위와 주께 감사하며, 귀히 쓴다고 한다. 그러나 받은 후에는 싹 변한다. -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흠 없고 진실하신 성자>를 그리 대하면 안 된다.
27.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하늘 앞에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면 안 된다.
28. '인심조석변(人心朝夕變)'이라는 말처럼, 하늘 앞에 자기 마음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하면 안 된다.
29. 사람은 '무엇을 얻기 원할 때'와 '얻은 후의 마음'이 다르다.
30. 무엇을 얻기 원할 때는 하나님과 성자를 부르고 찾고, 애간장 태우고, 끼니를 거르며 기도하며, 울고불고한다.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다 한다고 하며 약속한다. - 그러다가 받으면, 자기가 약속한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
31. 자기가 하늘 앞에 고백한 것, 말한 것, 약속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자는 젊어도 '치매 신부'다.
32. 무엇을 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면, 약속대로 해라. -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면 '더한 축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안 하면 '괴로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33. <월명동 성지 땅>도 섭리 모두를 위해 가꾸고 개발해 주었다. 고로 성삼위께 늘 감사하며 날마다 차원 높여 귀히 쓰고, 매일 감격하며 사연을 말하고 감사의 이야기를 해라. 그로 인해 더 주신다.
34. 하나님과 성자께서 기도한 대로 주셨으면 더욱더 하나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매일 감사 감격하며, 자기 모순과 잘못을 고치고, 주신 것을 귀히 쓰면서, 또 구할 것을 구하며 달라고 해라.
35.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 할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결재'를 잘 받으려면 - 첫째, 합당한 것을 구해라. 둘째, 속이지 말고 구해라. 셋째, '간구할 때의 마음'과 '받은 후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곧 받은 후에도 늘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며, <신부>로서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36.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속이고 구하면, 하나님은 결재해 주지 않으신다.
37. 하나님께 결재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 구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38. 하나님과 성자 앞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삼위와 일체 된 자>가 아니면, '큰 것'은 결재해 주지 않으신다.
39. 삼위와 일체 되지 않은 자, 삼위의 것이 아닌 자, 삼위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큰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생명들을 구원하여 '자기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큰 사명>을 안 주신다.
40. 종급이나 형제급에게는 '그 정도의 사명'만 주신다.
41. 이단 종교들은 사명을 줘도 '자기'를 중심하니, <구원하는 사명>은 절대 안 주신다.
42. 섭리사 안에서도 하나님과 성자는 '결재'를 잘 안 하신다. 주면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쓰기 때문이다.

43. <사랑하는 자>에게 줘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삼위와 일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쓰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결재해 주신다.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44.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는 그것을 주신다면 성삼위를 사랑하며 변치 않고 감사하며 귀히 쓰겠다고 약속하며 간절히 구한다. 그러나 성삼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것을 주시면, ‘그때만 잠깐’ 좋아한다. 그러다 ‘한 때’가 가면, 좋아했던 마음도 감사도 다 식어 버리고 잊어버린다.

45. 사람들이 ‘뭘 해 달라고 할 때’는 불같이 열정적으로 원하며 하나님을 찾고 진정 애원한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받은 후’에는 그 뜨겁던 열정이 다 식어 버리고, 감사도 없어지고, 하늘과의 교통도 사랑도 없어지고, 또다시 불만만 한다. - 이러한 민족성, 개인 성향을 없애고 고쳐라!

46.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 주시어 불가능한 것을 얻게 됐는지, 자기 실력이나 사람들의 실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했는지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임을 알았으면, 꾸준히 끝까지 감사하고 사랑해라.

47.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시면 감사는 하고 사랑은 하는데, 꾸준히 끝까지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48. 사람들은 위급할 때나, 무엇이 필요할 때나, 경기의 승패를 거를 때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부른다. 끝나면, 그 열정이 사라진다. 그때뿐, 한 때뿐이다.

49. <축구경기>를 할 때도 열심히 하다가 순간 서 있으면, 그 순간 상대편 선수에게 ‘볼’을 뺏겨 상대편이 ‘골’을 넣게 된다. 고로 경기에서 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열정적으로 하다가 말면, 그 순간 불의한 생각이 나서 불의를 행하게 되고, 자기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 고로 그 전에 열정적으로 한 것이 허사가 된다.

50. 무엇을 해 달라고 할 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과 열정이 ‘순간’에서 끝나면, 하나님은 안 도우신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법>이다.

51.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간절히 구해라. 그래야 ‘결재’하시고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를 돕기만 하고 우리의 시중을 들다가 마는 존재자가 아니니,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받으면,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잊지 말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늘과 ‘인연’을 맺어 꾸준히 끝까지 성삼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52.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하고자 간구할 때’의 그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고 ‘받은 후’에도 꾸준히 끝까지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행하며 살면, 삼위 앞에 ‘합당한 자, 신뢰를 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어 계속해서 절대 도우시고 더욱 주신다.

53. 하늘의 신부들은 감사도, 사랑도, 교통도, 간절한 마음도, 열정도 ‘한 때뿐’으로 끝나지 말아라.

54. 가다가 변질되지 말고 변함없이 해라.

55. <할 일>도 ‘하나님의 결재’가 나야 잘되고, <구하고 찾는 것>도 ‘하나님의 결재’가 나야 얻게 되고, <죄>도 ‘하나님의 결재’가 나야 완전히 소각된다.

56. 집을 지을 때도 ‘국가의 허가’가 쉽게 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보고 허락하는 데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몇 년씩 걸린다. <하나님의 결재>도 그리 쉽게 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도 보시고, 앞날도 보시고, 그것을 결재하면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없는지도 보시고, 그것을 주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할 것인지도 보시고, 얼마나 감사하며 쓸 것인지도 보신다.

57. 하나님은 열정, 감사, 사랑, 간절한 마음이 식지 않고 변치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 쓰지 않고 하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는 자에게만 주신다.

58. ‘너’라는 인생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왔으니, 늘 변치 말고 성삼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59. <신용>이 좋으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해 주듯이, 삼위와 일체 된 자, 삼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지난날 ‘받은 것’을 계속해서 감사하며 쓰는 자, ‘받기 전의 애타는 마음과 열정’이 변함없는 자는 <신뢰>가 있는 자로서, <할 일>과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결재해 주신다.

60. 하나님의 결재를 못 받고 끝나면 ‘받는 것’이 없다. 고로 꼭 <할 일>과 <원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결재를 받기 위해 꼭 기도해라. 이것이 ‘기도하는 목적’이다.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눈’으로 자세히 볼수록 ‘생각’이 달라지듯이, ‘생각’할수록 ‘생각’이 달라진다. <생각>이 하나의 ‘눈’과 같다.
2. 사람이 ‘그냥’ 보다가 ‘유심히 자세히’ 보게 되면, <생각>이 전혀 달라진다. 고로 <생각의 눈>을 가지고 그냥 보통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고, 유심히 자세히 깊이 보고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이 전혀 달라진다.
3. 사람이 ‘눈’으로 자세히 볼 때 ‘생각’이 뒤바뀌어 ‘인생의 운명’이 뒤바뀐다. 고로 ‘생각의 눈’으로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운명’이 뒤바뀌어 행하게 된다.
4. 앞날에 어떤 좋은 사연이 있기로, 갖은 고통을 당하며 살 때 소쩍새가 그리도 밤새워 울었다.
5. 앞날에 어떤 사연이 있기에 자기 삶의 소쩍새가 그리도 슬피 운다.
6. 인생의 <과거>를 회상할 줄 모르면, <현실의 보람>도 못 느낀다.
7. <과거>는 과정이다. <현재>는 과정을 거친 목적지다.
8. <현재>에서 ‘미래의 갈 길’을 쳐다보면, 미래가 보인다. <현실>은 ‘미래를 결정하는 곳’이다. 고로 현실이 중요하다.
9. 나에게에는 쓸데없는 일이지만, 저들에게는 존재하려니 필요한 일이다.
10. 돈이 없는 자들은 아예 사지를 못하니 그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한다. 돈 있는 자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고,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쏟는다.
11. 한 지역의 한쪽에서 한 아파트 청약을 받으려고 그리 경쟁해도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이해도 못 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진행되어 사람들이 밀려와도 새 역사와 상관없는 자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고 이해도 못 한다.
12. 항공권을 사 놓고 비행기 출발 시간이 다 되니 급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가며 얼굴색까지 변해서 뛰어가는 자들이 있다. 옆에서 아무리 그리 급하게 가도, 이미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 자기에 관한 것이 아니니 100% 상관이 없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두고, <성자의 휴거 역사>를 두고 사는 자들이 급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어 가며 급히 뛰고 달려도, 이 역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은 ‘길’이 다르고 ‘삶’이 다르니 아무 관심이 없다. 하지만 이 역사를 알면 ‘같은 방향, 같은 인생길’이니, 늦게 온 연고로 더 애간장을 태우며 뛰게 된다. 어서 복음을 전하자!

13. 해당되는 자들만 관심을 갖고, 생각과 행실을 쏟고, 뛰고 달리며 서두른다.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태평하다.
14. 섭리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에 해당되는 자들’만 재촉하면서 서두른다.
15. <휴거의 근본과 가치>를 깨닫고 아는 자는 - 마치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찾으러 바빠 가듯, ‘갈 길’을 간다.
16. <영>을 깊이 보아라. 보통으로 보지 말아라. 깊이 봐야 ‘생각’이 달라진다. ‘행실’이 달라진다.
17. 모를 때는 마냥 기쁘다. 그러나 그 건물이 곧 무너지는 것을 눈치 채면, 거기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소리 치며 제일 먼저 뛰쳐나온다. 아마 그 순간에 짝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차를 마시자고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그 건물에서 뛰쳐나올 것이다. <휴거>도 이같이 행해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곧 무너질 건물에서 뛰쳐나오듯 급히 행하는 자만 <휴거의 길>을 확실히 가서 <300선>에 오른다. 영원히 누리는 것을 얻는데, 그리 쉽게 얻어지겠느냐.
18. 다 와서 방심하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생각도 행실도 혼도 영도 딴 데 한눈팔지 말고 ‘목적 한 가지’에 집중하여 행해라. 휴거된 후에 한 눈도 팔고 쉬기도 해라. - <휴거>는 연속해서 차원적으로 한다.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하는 것>이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같다.
2. <생각>이 ‘눈’이다.
3. <성자>에 대해 민감해야 성자께서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깨닫고 행하게 된다.
4. <성자>에 대해 생각이 아주 민감해야 성자가 ‘눈짓’하시면 느끼고 깨닫게 된다.
5. 민감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이냐? 마치 남자가 자기 애인을 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쳐다보며 살피는 것과 같다.
6. 항상 <생각의 눈>으로 성자를 보고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면,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7. 성자를 생각하면 ‘생각의 눈으로 성자를 쳐다보는 격’이 되어 <성자가 생각하는 것>을 바로 느끼고, <성자가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는 것>을 즉시 눈으로 보듯이 느낄 수 있다.
8. 성자께서 늘 도우셔도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것은 마치 ‘눈을 돌려 다른 데를 쳐다본 것’과 같아서 모른다.
- <생각의 눈>으로 성자를 쳐다보아라.
9. <육계>에서는 ‘육의 눈’으로 쳐다보고, <영계>에서는 ‘생각의 눈’으로 쳐다본다. 생각하는 것이 쳐다보는 것이다. 잊으면 죽는다.
10. 잊으면 죽는다. - 이 말씀은 최고급 다이아몬드와 같은 말씀이다.
11. 잊지 않으면 산다. - 여기서 산다는 것은 잊지 않음으로 ‘육신’도 살고, ‘그 일’도 살고, ‘어떤 사건’도 살고, ‘마음’도 살고, ‘신앙’도 살고, ‘혼과 영’도 산다 함이다.
12. 죄를 지으면 혼도 영도 사망의 그늘에 덮여서 죽는다. 운동장에서 금을 그려 놓고 게임을 하는데, 금을 밟으면 그 게임에서 죽는다. 다 끝나고 다시 할 때까지는 그 게임에 못 들어간다.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그 영혼’이 죽는다.

13. 너는 배다. 너라는 배에 ‘돛’을 달아라. 이것을 잊으면 주의 주관권에서 벗어나 죽은 격이 된다. <돛>은 ‘세상 바다의 구원자’다.
14.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면 주와 교통하게 되어 산다.
15. 기도하면 전능자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정신과 생각>이 10배, 100배, 1000배 강해진다. 고로 사탄도 인사탄도 이기고 끝까지 전진하게 된다.
16. 기도는 하나님께 결재받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다.
17. 기도의 결재는 허락이다. 응답이다. 허가다.
18. 기도해야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게 되니 희망이 차고 넘치고, 혼자서도 자신 있게 영웅처럼 하게 된다.
19. 기도해야 기드온 용사같이 강해지고, 하나로 뭉쳐서 상대를 물리친다.
20. 기도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교통하게 되고, 신령하여 영계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된다.
21. 주가 용서해서 구원받게 된다.
22. 주가 죄지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고 결국 그 죄로 인해 혼도 영도 죽는다.
23. 주가 용서해야 산다. <주>가 ‘열 번 용서’해 주면, <본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함으로 <선>으로 나오게 된다. - 이것을 계속하면, 결국 <생명권>으로 나와서 살게 된다.
24. 자기 힘과 능으로는 죄를 막지 못한다. <주>가 용서해야 다시 산다.
25. <영상>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 해도 마치 어린아이가 물살에 넘어지듯 넘어진다. 이때 어린아이를 일으켜 주면 물가로 올라오게 된다. 그때 살게 된다. - 이와 같이 세상 파도에 휩쓸려 넘어진 자를 <주>가 자꾸 붙들어 주고 용서해 줘야 살게 된다. 고로 용서한다.

<2015년 3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몸의 구조와 형태와 기능>도 배우고, <뇌의 구조와 기능>도 배우고, <혼과 영>도 배우고, <세상 만물>도 배우고 살아야 된다.
2. 인간이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 <전능자의 생각>을 받아야 된다.
3.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신의 생각의 삶’을 살게 된다.
4. <신의 삶>은 ‘아는 삶’이다. 알되, 인간이 아는 것과 다르게 차원 높게 아는 삶이다.
5. 가령 <인간>은 사과 하나를 먹는 생각의 삶이라면, <전능자 신>은 일부는 먹고 일부는 땅에 심어 수만 개의 열매를 얻어 풍부히 먹고 사는 생각의 삶이다.
6. <인간>이 아무리 잘 알아도 <신>이 아는 차원과는 다르다.
7. <인간>은 조금 알고, <신>은 완전히 아신다.

8. <인간>은 결과를 일부만 알고, <신>은 근본과 결과를 완전히 다 아신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직접 행하시니, 완전히 아신다.
10. 인간은 조금 보고, 듣고, 행하고, 아는 정도다.
11.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모른다.
12.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고 계셔도 모른다.
13.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14.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15. 성자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해라.” 하신다. - 하늘 편의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못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다. 고로 하고 싶도록 기도해라.
17. (성자) 나에게 기회를 달라.
18. 성자께 기회를 드리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자께 맡기는 것’이다.
19. 성자께 묻기를, 때는 되었고 다급한데 왜 답을 안 주시냐고 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맡겨야 대답한다.” 하셨다.
20. 내 생각을 버리고 성자께 맡겼더니, 성자는 한 장면을 보이시며 계시해 주셨다. 그것을 보고 바로 분별하고 결정하고 행하여 그것을 얻게 되었다.
21. <장점>도 크지만 <단점>도 큰 것은, 어느 쪽을 결정하더라도 <단점>이 컸다. 고로 결정하기 힘들었고, 분별을 못하고 헛갈렸다. 성자께 맡기면 보여 주신다. 그러면 분별이 되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알게 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자께 맡겨라.
22. 성자께 맡기되, 계산해야 된다. ‘현실의 것’인데 ‘예전 것’만 생각하면서 해도 안 된다. 현실을 중점으로 두고 계산해야 된다. 현실의 역사다.
23. <분별>은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해 주시면, 쉽고 간단했다.
24.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분별하시도록 ‘자기 생각’을 비우고 기도해라.
25. 귀한 것을 모르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다.
26. 정신이 있을 때 확인해라.
27. 정신이 없을 때 확인하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
28. 당황했을 때, 정신이 없을 때는 확인하나 마나다.

29. 차를 타느라 급해서 정신이 없을 때 ‘가지고 갈 책’을 확인했다. 그때는 ‘그 책’이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타고 나서 보니 ‘그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었다. 정신이 없을 때 확인하니, 내가 생각한 대로 ‘책의 제목’이 잘못 보인 것이다.

30. 정신이 없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고 들린다.

31. <죄>도 <부정한 것>도 100% 없애면, 100만 명이 와서 찾아도 못 찾는다.

32. 100% 회개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오셔서 <죄>를 찾아도 못 찾으신다.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께서 앞길을 내다보고 말씀하신다. 새롭게 해라.

2. 가다가 한계 상황에 처하여 보니 길이 막혀 있었다. 새롭게 해라.

3. 과거 식은 ‘과거’에서 끝났다. 새해에는 ‘새롭게 하기’다.

4. 과거 식으로 하면 전에는 뻘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과거 식으로 하면 ‘갈 길’이 막힌다.

5. 과거에 성자가 시켜서 한 방법이라도 올해는 과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길이 막힌다.

6. 이제 성자가 떠나시니, 새롭게 하고 차원 높여서 해야 된다.

7. 새롭게 하지 않고 차원 높여서 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 ‘앞길’이 막혀서 못 간다.

8. 옛날 식으로 하면, ‘갈 길’이 막혀서 실패다.

9.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마음, 새로운 행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겠다.

10. 새롭게 해라. 이전 것은 끝났다. 새것이 네 앞에 왔다.

11. <옛날 식>으로 하면, ‘예전 것’은 길이 생기고 얻어졌다. 그러나 <옛 방법>으로는 ‘새것’을 못 얻고, ‘갈 길’이 막히고, ‘하는 일’이 안 된다.

12. 형통과 승리로 이끄는 길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13. 1차 새롭게 하니 ‘새로운 것’을 얻었다. 그리고 ‘2차로 새롭게 할 일’이 생각나고 보였다. 2차로 또 새롭게 하니 ‘전보다 더 새롭고 희망찬 일’이 생겼고 ‘새로운 보화’를 얻게 되었다. - 새롭게 해야 ‘새로운 일’을 찾는다.

14. 과거 식으로 하면 ‘희망의 길’이 막힌다. 힘들고 곤고하다.

15. 새롭게 하는 것은 ‘문제의 답, 문제의 해결’이며 ‘희망의 방법’이며, ‘성자의 지시’이자 ‘성자의 특별 계시’다.

16. 사명도, 일하는 것도 새롭게 하겠다.

17. 사명을 하는 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하여 ‘길’이 막히게 되면, 첫째,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과 / 둘째, ‘그 자리에서 차원을 높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것’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8. 새로운 위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겠다. 또한 차원을 높여서 새롭게 하겠다.

19. 말씀대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성자는 그 사람과는 같이 일을 못 하신다.

<2015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새롭게 하면 '새로운 환경'이 되고,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21.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22. 사명을 맡아서 뛰는 자들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말씀을 배우는 자들도, 전도하는 자들도, 각자 자기 위치에 서 뛰는 자들도 새롭게 하지 않고 옛날 식으로 하면 곤고하고 힘들어진다.

23. 새롭게 하지 않으면, 길이 막혀서 '희망'이 끝나게 된다.

24.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는 자에게 '새 희망의 길'이 열린다.

25.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된다.

26.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는 자는 '새것'을 얻게 된다.

27.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도 때에 따라 새롭게 하셨다. 구약, 그다음에 신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약역사다.

28. <구약인들>도 처음에는 잘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처하여 나태해지고 부패되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 역사의 길>이 막히니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다. 곧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

29.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새로운 신약 말씀'을 주시고, '종급'에서 '아들급'으로 차원을 높여 새롭게 하시며, 2000년 동안 <신약 구원역사>를 펼쳐 나가셨다. 새롭게 하니 <구약>보다 10000배나 더 얻었고 이상세계를 이루었다.

30. <신약역사>도 정한 때까지 하니 한계 상황에 이르러 부패되고, 곤고해지고,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뇌가 굳어서 <새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안주하게 됐다. 고로 하나님은 땅에 '새로운 사명자'를 보내셨고, '하늘의 성자'를 보내어 '땅의 사명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약 말씀'을 주시고, '아들급'에서 '신부급'으로 차원을 높여 새롭게 하시며 <1000년 성약역사>를 펴 나가신다.

31.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역사'로서 '재림과 휴거의 역사'다. 신약보다 차원을 높인 역사다. 시작한 지는 '육'으로는 70년이 됐고, '사명'으로는 37년이 됐다. 삼위일체가 행하시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 구역사보다 더 웅장하게 된다.

32. 삼위일체가 행하시면 세상이 막아도, 불신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정녕코 창대하게 이루어진다.

33. 섭리역사도 '전반기 때 하던 식'으로 또 반복해서 하면 답답하다.

34. <새로운 역사>라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

35. 지금은 <완전한 새 역사의 때>다. 더욱 차원을 높여 새롭게 하겠다.

36. 섭리사 안에서 '옛것'만 보고 듣고 행한 자들은 지금도 '옛이야기'만 한다. 그러니 '새로 온 자들'에게는 그 말이 안 통한다. 지금은 <휴거 때>인데 자꾸 '옛이야기'만 하니, 휴거를 준비하던 자들의 뜨거운 마음의 불을 꺼뜨린다.

37. 뉴스도, TV 프로그램도 이미 방송한 것을 또 해 주면, 사람들은 바로 채널을 돌려 버린다. 사람들이 이리도 민감하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야기나 섭리의 옛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얼마나 싫어하겠느냐.
38. 결혼하여 같이 사는데 자꾸 ‘자기 어렸을 때의 이야기’만 하면, 상대는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 버린다.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이 이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랑이 꺼지지 않고 불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사랑이 불타다.
39. 휴거 때에 <휴거된 자들>은 ‘천국 이야기’를 하고, <휴거되지 않은 자들>은 ‘옛이야기’만 한다.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기가 겪은 것만 알고 있으니 계속 그 이야기만 한다. <휴거된 자들>에게는 그 말이 체질에 안 맞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건성으로 듣는다.
40. 사람은 ‘자기 차원’에서 말하고 살아간다.
41. 지금은 <완전한 새 역사의 때>다. 그러나 ‘새로운 말씀’을 듣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옛것’만 주장하며 외치는 자들은 아직도 ‘옛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42. 나이 먹어도 <새 시대 말씀>을 외치면, 젊다 한다.
43. 지난날 <섭리사 환난 때>가 그리도 중한 때였다. 그때 사명자와 함께 환난을 받으며 쓴 잔을 마신 자들은 지금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
44. 환난 때, 힘들 때 신앙을 지키며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연단받은 자가 때가 되니 욥처럼 단련하고 나와서 외치게 된다.
45. <최고의 환난 때>는 자기를 최고로 연단하고 단련하는 때다.
46. <환난 때>는 주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 주는 때다.
47. <환난 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를 더욱 사랑하고 믿어 주며, 주의 일을 행하며 충성한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 되어 그 욕도 영도 그리도 빛이 난다.
48. <새로운 역사>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한계 상황에 처하고,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갈 길이 막히고, 옛것에 갇히고, 지루하고, 권태가 오고, 기성화된다.
49. <옛 방법>으로 하면, 쪼그리고 앉아서 힘들게 걸어가는 격이다.
50. <새 역사>에는 ‘새로운 자들’이 밀려오니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따르는 자들이 만족해하고, 힘을 얻고, 뛰고 날게 된다.
51. 새롭게 해라. - 이 말씀은 표상자가 성자의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하여 새것을 얻은 후에, 모두 새롭게 하여 새것을 얻고 살라고 선물로 주는 말씀이다.
52. 새롭게 해라. - 이 말씀은 ‘형통하는 삶의 길잡이’다.

<2015년 3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53. 팔짱 하나도 ‘식으면’ 맛이 없다. 이때 새롭게 하면 맛있어진다. 새롭게 하는 방법은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다.

54. <식은 빵>을 뜨겁게 하듯이 <식은 신앙을 뜨겁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다.
55.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다. <신앙>도 <사명>도 ‘열’이 식으면 힘들고, 느낌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사는 맛도 없다.
56. <신앙>을 할 때나, <사명>을 할 때나 뜨끈뜨끈하고 펄펄 끓듯 해야 힘들지 않고 쉽다.
57.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고 사라지면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큰 사명도 싫어지고, 성자의 신부 자리도 싫은 것이다.
58. <마음>을 뜨끈하게 데워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서 돌이켜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59. 새롭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60.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죽고, ‘심령’이 죽고, ‘열정’이 죽고, ‘신앙’이 죽고, ‘삶’이 죽고, ‘그 일’이 죽는다.
61. 지루하냐. 권태가 왔느냐. 안주하고 있느냐. 나태하냐. 태만하냐.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느냐.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 원하던 것을 얻기 원하느냐. 새것, 새 희망을 찾기 원하느냐. - “새롭게 해라.”
62. 세상만사 ‘새롭게 하는 것’이 답이다. 꿀맛이다. 진수성찬이다.
63. 새롭게 해야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보화가 묻힌 밭의 주인’이 된다.
64. <과거의 방법>으로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헛수고한다.
6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새롭게 하시며 말씀하신다.
66. 새롭게 하는 것이 ‘배에 돛을 다는 것’이다. 고로 엄청난 파도를 헤치며 가게 된다.
67. 잠깐만! 새롭게 해라. 이 말을 잊으면 죽는다. 신앙이 죽는다. 원하는 대로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죽는 격이다. 곤고하고, 걱정하며 염려하게 되고 힘이 드니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다.
68. 새롭게 하면 빨리하게 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지식 충만하여 능히 하게 된다. 고로 ‘희망했던 새것’을 얻게 된다.
69. 새롭게 하니 걱정·근심·염려가 없어지고, 쉽고 편안하고, 이상세계에서 사는 자가 된다.
70. 새롭게 하는 것이 ‘복’이다.
71. 성자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말씀>으로 주신다.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게 된다.
72. <성자의 말씀>은 ‘엄청난 것이 해결되는 절대신의 말씀’이다.
73. 새롭게 해라. - 이 한마디는 ‘천만금의 값’이다. 행하기만 하면, 즉시 밭의 보화를 발견하듯 저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과 생명의 기쁨’이 일어난다.
74. 사람이 늘 새롭게 해야 <마음과 생각>도 새로워지고 <행실>도 새로워진다. 그리함으로 ‘새 힘’이 솟아나고 ‘새 희망의 불’이 붙어서 ‘새것들’을 다시 얻게 된다. 고로 잔치하게 된다. 거기서 또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게 된다.
75. 강의도 새롭게, 전도도 새롭게, 관리도 새롭게, 목회도 새롭게, 사명도 새롭게, 지도자도 새롭게, 집회하는 자들도

새롭게다.

76. 새롭게 해야 <변화>도 빨리 되어 <휴거>도 빨리 된다.

77. 새롭게 행하여 '새것'을 얻어라.

78. <불>이 없으면 음식을 못 만든다.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이 식으면 '새 일'을 할 수 없다.

79.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해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새롭게 할 수 있다.

<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때가 되면 간다.

2. 때가 되면 바뀌니, 가야 한다.

3. 하찮은 곤충도 때가 되면, 때를 따라서 간다.

4. <때의 주인>이 가야 '만사의 때'도 따라서 같이 간다.

5. <모태>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성장하고 때가 되어 <모태>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오면, 두 번 다시는 <모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성자도 지상에 오셔서 역사를 이루시고 지상을 떠나시면, <모태와 같은 지구>에 다시는 안 오신다. 더 이상 재강림이 없다.

6. 재림하고 떠나면, 또 재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 성자는 영광을 받기 위해 오고 가실 뿐이다. 이는 결혼한 후에 처가에 한 번씩 들르는 격이다.

8. 때가 지나면, 못 한다. 때를 맞았을 때 1분이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

9. 이제 '성자의 육'을 더욱 중심하여 살아야 할 때다.

10. 성자의 육, 곧 땅의 구원자를 확실히 알고 믿고 따르며, 그와 완전히 일체 되어 살아야 할 때다.

11. 말씀을 귀히 여겨라. 기도를 귀히 여겨라.

12.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과 안 해도 될 것을 분별해야 <인생 승리>, <신앙 승리>하고, <휴거>도 이룬다. 무엇으로 분별하겠느냐.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한다.

13. '샘'을 안 거치고 가면 '물'을 못 가지고 간다. 이와 같이 '기도'를 안 하고 가면 '말씀'을 못 받는다.

14. <기도>는 '신적 기도'다. 신과 닿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15. 기도하는 자만 알고 분별한다.

16. 산 정상에 오르듯, 기도도 그리 하여라.

17. 절대자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행해야 된다.

18. 하나가 벗어나면, 전체가 다 벗어나게 된다.

19. 고로 하나도 벗어나지 않게 하려면, '제 시간에 할 일을 하기'다. 하다가 못 하면 끊고, 다음 것을 하기도.

20. 두 쪽이 기도해야 된다. <원하는 대상>과, <기도해 주는 주체>다. 긴 고기를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은 '꼬리'를 들고 다른 한 사람은 '머리'를 들고 가는 격이다.

21. 기도하고 관리다.

22. 기도하고 전도다.

23. 기도하고 강의다.

24.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다.

25. 말씀 듣기다. 그리고 기도하고 행하기다.

26.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27.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결재받는 시간이다.

<2015년 3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산 자>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고로 살아 있을 때 도와주시고 함께하신다.

2. 죽기 전에 살아 있을 때 도우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3. 누구든지 <신앙>도 살아 있어야 성삼위가 역사하고 도우신다. <죽은 자>는 도와도 모르니 돕지 않으신다.

4. 죄도, 불의도, 세상 사랑도, 이성 사랑도 다스려라.

5. (어떻게 다스릴까?)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싫어해야 다스린다.

6. 자기가 죄, 불의, 세상 사랑, 이성 사랑을 싫어해야 쉽게 자르고 다스린다.

7. 자기가 '겨울에 내리는 눈'을 싫어하면, 눈이 와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 - 불의도 이와 같으니, '불의'에 대해 가르쳐 주어 스스로 싫어하여 다스리게 하여라.

8. 자기가 '눈'을 좋아하면, 첫눈이 와서 눈발이 조금만 날려도 즉시 관심을 가지고, 눈이 왔다고 소문을 내면서 자기는 첫눈을 맞았다고 자랑한다.

9.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 '작은 개미'가 옆에 지나가도 찾아내고 알게 된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고 무관심하면, '거대한 코끼리'가 옆에 지나가도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

10.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자>가 '찾게' 되고, <스스로 원하는 자>가 '얻게' 된다.

11. 자기가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 것은 '눈'으로 보고서도 그냥 스쳐 지나간다.

12. 자기가 ‘죄’를 싫어해야, 스스로 ‘죄’를 쉽게 다스리게 된다.

13. <한 달 동안 죄를 다스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굳히고 살
아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죄’를 거부하니, 그 신앙이 아주 튼튼해진다.

14. 자기가 ‘죄’를 거부하는 정도이면, <어른>이 되었다고 하기보다 <신>이 되었다고 한다.

15. 완벽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완벽하니 ‘신’이라 하는 것이다.

16. 신의 차원에 도전해라. 완벽함에 도전해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것을 원하시고 허락하셨다. 고로 완벽하게
하려는 자를 더욱 도우시고, 그와 더욱 함께하며 역사하신다.

<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은 깨닫고 느끼는 것이 <혼체>만 못하다. 고로 성자는 <혼>을 통해서 ‘꿈’으로 보여 주신다.

2. 사람은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고로 <생각>이 멋있어야 <행동>도 멋있다.

3.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라. 그래야 뇌에 저장되고 마음이 감동된다.

4. 사람이 감동되는 만큼, 그것을 귀히 여기고 행하게 된다.

5. <영>은 느끼려고 생각을 밀착해야 느껴진다.

6. 화재가 나서 불이 몸에 달아야 그제야 충격 받고 뛰려고 하느냐.

7. <생각이 무딘 자>는 현실이 ‘자기 몸’에 달아야 그제야 느끼고, 피하고, 할 일을 행한다. <생각이 예리한 자>는 현
실이 ‘자기 몸’에 안 달아도 ‘눈’으로 보면 느끼고, 피하고, 할 일을 행한다. <영적인 자>는 ‘눈’에 안 보여도 느끼고,
피하고, 할 일을 행한다.

8. 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9. 제자리에 앉아서 행하지 않으면, 1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것은 절대 법칙이다. 하면 되고, 안 하
면 안 된다.

10. <귀한 자>가 모든 것을 귀히 쓴다. ‘생각’이 높고 ‘깨달음’이 깊으니, 그만큼 귀히 쓰고 대한다.

11. 생각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모른다.

12. 식사 때 ‘김’을 먹으려고 밥그릇 옆에 ‘김’을 놔뒀다. 그런데 밥을 다 먹고 씻고 치운 후에야 ‘김’이 보였다. - 생
각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에 두고 따라서 행해라.

14. 자기가 하면 ‘작게’ 된다. 삼위를 중심에 두고 따라서 하면 크게 된다.

15. “네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행하시게 해라.”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는 “<네 차>가 있으면 <운전대>를 삼위께 내어 드리고, 삼위가 <삶의 운전>을 하게 해라.” 함이다. <자기
몸>은 ‘차’이고, <자기 마음>은 ‘운전대’와 같다. “내 인생인데 내가 운전을 안 하고 삼위께 맡기면, 인간으로서 사는

맛이 안 날 것이다. 인생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사냐? 내가 직접 안 하면 무슨 보람이 있고 느낌이 있느냐.” 할 것이다. - 그런 말이 아니다. (다음 잠언을 보겠습니다.)

16.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데 ‘자기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과 성자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다. 그러면 자기도 그 옆을 따라서 같이 가게 된다. 고로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한다. 그러니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성자의 생각’과 맞아서 좋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과 같다.

17. “하나님과 성자가 중심이 되어 하도록 <네 마음>을 비워라.” 함은 마치 ‘물컵에 있는 <자기라는 물>을 쏟아 버려라.’ 함이다. 그러면 그 비워진 컵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물>을 넣어 주신다. 그러면 <자기라는 컵>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느낀다.

18. <자기 마음 그릇>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야 그 마음과 생각을 느끼고 알게 되고, 그 마음과 일체 되어 같이 행하며 살게 된다.

19. <자기 마음>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중심으로 하고 살아야 육적인 삶, 무미한 삶, 사망의 삶을 살지 않게 된다.

20. “네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을 담아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중심>으로 살아라.” 함은 - 첫째,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 마음과 생각’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게 된다. 둘째, <성령의 감동, 성자의 감동>으로 살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 감동>이 ‘자기 마음, 생각, 중심’이 되어 살게 된다.

21.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100% 사랑하고, 최우선으로 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하여 살고, 그 말씀과 감동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하고, 최우선으로 하고, 100%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마음과 생각대로 살면, 그것은 ‘삼위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 의향’대로 사는 것이 된다. - 고로 ‘더 크게’ 하게 되고, ‘더 완전하게’ 하게 되고, ‘앞날’을 생각하며 하게 되고, ‘장단점’을 다 보고 분별하여 거기에 맞춰 하게 된다.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말>과 <마음>은 같이 간다.

2. <말>과 <생각>은 같이 간다.

3. 가령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그 <말>이 <자기 마음과 생각>이 되어 따라간다.

4. <생각>은 가만히 있으면, 무(無)와 유(有)로 혼동되어 흘러가 버린다.

5. <말>을 똑똑히 하면 <생각>이 그 말을 따라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가만히 있게 되어 <생각>이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고로 기도할 때 말을 토박토박 해야 그 말에 따라 <생각>이 움직여서, 기도가 흐지부지되지 않고 생각이 흥미해지지 않는다.

6. <생각>은 확실하게 기억하며 행해야 빛을 발한다.

7.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안 가니 <몸>도 가지 않는다.

8. 아무리 ‘수박만 한 과일’도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안 가고 <몸>도 안 간다.

9. <마음>이 좋아야 ‘보이는 것’도 좋게 보인다.

10.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좋은 것을 보더라도 마음과 생각이 병든 만큼 좋아하지 못한다.

11.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입을 벌리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안 가고 <몸>도 안 간다.

12. <마음>이 가고 <생각>이 있으면, ‘시고 텅텅한 산머루’도 가시나무를 제치고 기어 들어가서 따 먹는다.

13. <마음>이 좋아서 기뻐하니 ‘돌포도, 산머루’라도 너무 시어서 눈을 찡그리면서도 따 먹는다.

14. 먼저 <마음>을 좋게 닦아라. 그래야 ‘돌포도 같은 환경’도 기뻐 좋아하며 살고,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먹고, ‘멋없는 생활’도 멋있게 살게 된다.

15. <마음>을 좋고 강하게 닦아 놓지 않으면, ‘좋은 것’이 와도 뺏긴다.

16. <마음>을 닦고, <생각>을 닦고, <몸>도 닦고 연단하여라. 그래야 제대로 얻고 누린다.

17. 전능자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마음>을 주관하신다.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시간>에 ‘두세 가지’를 동시에 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 하나’를 골라서 해야 된다. - 그래야 ‘신앙의 부도, 인생의 부도’가 나지 않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2. 그 시간에 ‘최우선으로 할 일, 최고로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알려면, 꼭 <기도>해라. 기도하여 성자에게 감동을 받고 느끼게 해 달라고 해라. -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최고의 지혜>다.

3.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면, 꼭 ‘영적인 일, 영에 연관된 일, 삼위와 연관된 일’을 먼저 해라.

4. 만일 그 일이 <육적인 일>인데 누가 죽었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그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니 <육적인 일> 먼저 하되, 꼭 성자를 중심해서 하여라.

5. 항상 어느 때든지 ‘성자의 것,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여라. 그래야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양쪽 다 손해가 없다.

6. 생활하다 보면, 많은 일들 중에서 ‘먼저 할 것’이 있다. 그것이 ‘핵적인 일’이니, 그것 먼저 해야 된다. <핵>을 뺏기면 안 된다.

7.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자>가 ‘영적인 자’다.

8. 사람이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한다. 고로 ‘힘’을 다룬 데 뺏기지 말아라.

9. 육의 최고 에너지는 ‘육의 힘’이다. 그 힘은 ‘정신’에서 나온다.

10. <정신적인 힘의 핵심>은 ‘생각’이다. <영적 힘의 핵심>도 ‘생각’이다. 고로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11. 사람은 <생각>이 없으면, 약하고 힘이 없다.

12.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약하고 힘이 없다.

13. <생각>에서 힘이 ‘강하게’ 오기도 하고, ‘약하게’ 오기도 한다.

14. <생각>이라는 힘을 다른 데 쓰면, 힘이 소모되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한다.

15. 잡다한 것이나 육적인 것에 <생각의 힘>을 쓰고 뺏기면, ‘힘’이 없고 ‘의욕’이 없어서 자기가 최고로 이뤄야 할 <휴거>를 중심하여 <각종 일들>을 그때그때 행하지 못한다. 그러다 결국 사탄에게 당하고 끝나게 된다. 그러니 큰 손해다.

16. <생각의 힘>을 이성, 세상 오락, TV, 스마트폰, 컴퓨터, 자기가 좋아하고 중심하는 것에 소모시키면 그 시간에는 ‘육적’으로 <생각의 힘>을 뺏기니, <축복의 기회>를 줘도 ‘힘’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17.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성자는 항상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축복을 주고, 깨닫고 결심하게 하신다. 그런데 <생각>을 빼앗겨 <생각>이 없으면 몰라서 못 받는다.

18. <생각>은 ‘몸을 행하게 하는 몸의 주인’이다.

19. 성자는 ‘밭에 감춰진 보화’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 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계신다. 그러나 <몸의 주인인 생각>이 없으니 말해 주지 못하고 그냥 가신다.

20. 성자는 <생각>을 통해 축복도 주고, 예고도 해 주고, 앞날도 이야기해 주고, 휴거의 답도 주고, 사랑도 해 주고, 경고도 해 주신다. 그런데 <생각>을 뺏겨 <생각>이 다른 것에 쏠려 있으면, ‘주인 없는 집’ 같아서 심정 상해서 그냥 가 버리신다.

21.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을 뺏긴 것은 ‘하나의 죽음’이다.

22.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을 뺏기면 ‘육체 덩이만 있는 빈집’이다.

23. 성자는 도적같이 오셔서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작동시켜 주시며, ‘줄 것’을 주려 하신다. 그런데 <생각>을 뺏겨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 성자가 주셔도 길바닥에 놓고 가는 격이라서 사탄이 가져가니, 그때는 안 주고 그냥 가지고 가 버리신다.

24. 기도할 때, 영계에 갈 때, 성자를 만날 때는 <생각>을 집중해라.

25.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성자와 분체’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줄 것’을 주고 가신다. ‘성자와 그 육’을 얼마나 귀히 대하고 사랑하는지 보시고 주신다.

26. <신부>가 되려면, 신랑 되는 <성자와 분체>를 늘 생각해라. 그래야 <생각>을 다른 데 안 뺏긴다.

<2015년 3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이 없으면 못 한다. 고로 <시간>을 뺏기지 말아라.

2. 인간은 <시간>에 매여서 행하며 살아가는데, <시간>이 없으면, 성자가 무엇을 주셔도 못 받는다.

3. <시간>을 TV, 각종 오락, 세상 헛된 것, 육적인 것, 이성에 절대 뺏기지 말아라.

4. 온종일 <시간>을 아껴 써라. 잡다한 것을 하는 데 시간만 안 뺏겨도 <시간>은 충분하다.

5.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오는 귀한 시간이다. 그 좋은 시간을 <성자>를 위해서, <황금 같은 일>을 위해서, <휴거>를 위해서 써라.
6.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도 못 한다. 고로 <사랑의 대상>을 뺏기지 말아라.
7. 영원히 사랑할 대상인 '성자와 분체'를 뺏기지 말아라.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뺏기도 하고, 뺏기기도 한다.
8.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뺏기면, 혼자가 되어 육도 혼도 영도 쓸쓸하고 외로워 슬피 울게 된다.
9.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성자와 분체>를 뺏기니, 세상을 쳐다보며 <세상>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10. <사랑하는 대상>을 뺏기고 <자기 할 일의 대상>을 뺏기면, 자기 홀로 남는다. 자기를 중심하면 뺏긴다.
11. 기계에 나사 하나라도 안 맞으면 기계를 완성하지 못한다. 딱 맞아야 된다. -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도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자기가 깎아서 딱 맞게 맞춰야 된다.
12. 성자와 주와 안 맞는 것이 있느냐. 고치고 만들어라! 그러면 맞게 된다.
13.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여 인연을 맺었어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안 맞아서 헤어지게 된다.
14. <애인>은 '형제'나 '친구'와는 다르다. <애인>은 '마음, 생각, 행동'이 딱 맞아야 된다.
15. 너희는 이 시대 하늘의 신부이며 애인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늘 앞에 딱 맞추어라.
16. 화나는 것, 마음과 생각이 안 맞는 것은 잠깐이다. 서로 고치면 잘 맞게 된다.
17. 차나, 건물이나, 길이나, 집을 만들 때 처음에는 부속품들이 안 맞는다. 그러나 '깎아서 맞추어 끼우면' 차가 완성되고, 길이 완성되고, 건물이 완성되고, 집이 완성된다.
18. 사람이 다룰 때는 '뭔가 안 맞는 것'이다. 깎아서 맞추어 완성하듯 하여라.
19. 쇠도, 돌도, 나무도, 사람의 마음과 행위도 '깎아서 맞출 때' 그리도 기쁘고 보람 있다.
20. 모든 인간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심정>에 맞게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깎아서 맞추기'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성공'이며, '영원한 성공'이다.
21. 개발해라. 개발할 때 그리도 좋고 기쁘다.
22. 개발에 불붙으면,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초월하여 미쳐서 기뻐하며 하게 된다. 그러다가 다 개발되면, 천국과 같이 만들었으니 보람 있게 기뻐하며 살게 된다.
23. 처음에는 <성격>도 <마음>도 <행동>도 안 맞는다. <마음에 드는 얼굴과 몸>도 아니다. 깎아서 맞게 만드는 것이다.
24. 성자와 사랑의 인연을 맺고 살다가도 '마음과 행동'이 안 맞아서 싸우고 다투고 헤어진다. 헤어지면 '인간은 개성체'라서 그런 사람이 하늘 아래 또 없다. 고로 만들어서 맞추는 것이 뜻이다.

25.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의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정말 싫었다. ‘지역의 생긴 모양’이 정말 싫었다. 마치 ‘사람의 인물’을 보고 싫어하듯 했다. 그래서 매일 환경과 싸웠다. 앞산이 막혀 있으니 멀리 안 보이고, 뒷산에는 뒷마당도 없고, 물도 없고, 누가 봐도 산골짜기 촌놈 같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하여 만드니, <지형>이 ‘이 시대 최고 미인 형상’과 같은 <하나님 백보좌 형상>임을 알게 되었다. 보좌이니, 앞산이 가까이 있어야 했다. 내가 최고로 싫어했던 ‘앞산 절벽’은 스릴 있는 암벽과 같은 <야심작>으로 만들었고, 뒷마당이 없으니 청기와집을 100m 뒤로 옮겨서 앞산이 적당히 보이게 했다. ‘뒷마당’은 하나님의 구상대로 고래바위까지 100m를 뒷마당으로 만들고, 회골까지 500m를 뒷마당으로 만들었다. 앞마당은 운동장으로 만들었고, 저 멀리 4000m 앞까지 앞마당으로 만들어 등산로와 산책길도 만들었다. 모르니 무지로 인해 ‘지역의 생김새’만 보고 개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만들어서 맞추니, ‘최고의 미인 형상’이었다. 이와 같이 <성격, 인물, 행동>을 지적하며 한탄하기보다, 고치고 개발하여 ‘삼위의 신부’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라.

26. 자신도, 생명들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만들어서 삼위를 모시고 살아라.

27. 나사도 깎아서 맞추지 않고서는 안 들어간다. <자기 마음, 생각, 행동>을 깎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맞게 맞추기’다.

28. 나사를 깎아 맞췄으면, 기계에 끼우고 돌아가게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를 깎아서 성삼위께 맞췄으면, 그때부터 ‘심정 일체, 행동 일체’ 되어 살아야 한다. 매일 행하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보람이다.

29. <주체>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도 늘 반응해야 된다. 혼자만 계속 해 주면, 기쁨과 흥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기가 먼저 해야 기쁨과 흥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30. 산 올라타기 신앙이다. 올라타는 자만 100배, 1000배 더 느낀다.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법>이 많은 것은 ‘자유를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필요 없이 행할 것이 없다.’ 함이다.

2. ‘필요 없이 안 해도 될 것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좋으냐.

3. 법을 지키는 만큼 자신이 보호받게 된다.

4. 행해 버리면 깨끗하다. 행하지 않으면, 마치 청소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지저분하게 널려 있듯 하게 된다.

5. 회개도 행해 버리면 깨끗하다. 안 해 놓으면, 더러운 채 그냥 놔두는 것이다.

6.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는 ‘영의 위치, 혼의 위치’를 보면 안다.

7. <육>이 기억해야 기억한다.

8. <혼과 영>이 기억해도 <육의 뇌>가 기억하지 못하면, 기억이 안 난다.

9. <영>이 <육>을 돕기는 해도, 육과 같이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행하지는 못한다. <육>이 <영>을 돕기는 해도, 영과 같이 행하지는 못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을 돕기는 해도, 인간과 같이 하지는 않으신다. <인간>도 <삼위>를 돕기는 해도 <삼위>와 같이 하지는 못한다.

11.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할 일’을 해야 된다. 삼위의 도움을 받으나, 결국 자기가 행해야 된다.

12. <육신>이 해야 된다. <자기 혼과 영>이 <자기 육>을 돕기는 해도 육과 같이는 하지 못하니, 절대 <육>이 해야 된다.
13. <메시아>라도 돕기는 하는데 ‘그 사람의 할 일’까지 다 해 주지는 못한다. ‘자기 할 일’은 결국 <자기>가 해야 된다.
14. 육신이 눈으로 보고 다니는 세계는 <육의 세계>이고, 영이 보고 다니는 세계는 <영의 세계>다. <육의 세계>에서는 ‘육’이 행해야 되고, <영의 세계>에서는 ‘영’이 행해야 된다.
15. 하나님도 만나면 “기도해라.” 하신다. 어린아이라도 만나면 기도하라고 하신다. - ‘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구하는 것’은 인간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16.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 같이 행해 주신다.
17.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공부해라.” 한다. 왜?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게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 공부해 주지는 못한다. 어려도 공부하는 것은 자녀가 할 일이다. - 이와 같이 <기도>도 그러하다.
18. ‘작은 것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못 얻는다.
19.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20. <육계>에서 못 찾고 모르는 것은 기도하여 <영계>에서 찾고 알기다.
21. 성자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며 천 가지, 만 가지를 알아야 된다.
22. 쏠려고 급하게 찾는데 제자리에 없으면 ‘다른 물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써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겠느냐.
23. 원하는 상점을 찾아도 없으면 ‘다른 상점’에서 물건을 사다가 쓰듯이, 성자도 원하는 사람을 찾아도 없으면 ‘거기에 합당한 다른 사람’을 급히 데려다가 그때그때 쓰신다.
24. 성자께서 누구를 데려다가 쓰시며 행하시는지 모르니, 늘 기도하고 깨닫고 동참하여라.

<2015년 3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자께서 “급하다. 서둘러라. 해가 저물어 간다. 휴거 열차가 떠나가기 직전이다.” 하며, 말씀마다 ‘휴거, 휴거’ 하면서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셨을 때는 - 성자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실 때였다. 성자가 떠나실 때 휴거된 영으로 같이 가자고 하신 말씀이다.
2. <성자 승천일>에는 ‘성자’만 황금성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휴거된 영들’도 성자와 함께 황금성으로 갔다. - 그때부터 천국에서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다.
3. <성자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마치 ‘차를 타고 가는 격’이라서 성자의 도움을 받아 쉽게 휴거를 이룰 수 있었다. <성자가 떠나신 후>에는 ‘차 없이 걸어가는 격’이라서 자기 혼자서 해야 하니, 휴거되기에 보다 어렵다. <성자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실 때> 어서 그 말씀을 듣고 서둘러서 빨리 휴거를 이루어, 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가자고 그렇게도 숨넘어가는 소리를 하며 재촉하신 것이다.
4. 성자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렇게 재촉하며 말씀하셨어도 ‘보통으로 들은 자들’은, 그때

<휴거의 잠>을 깨지 못하여 <휴거>를 완성하지 못했다.

5. <휴거 역사>는 ‘성자의 육이 살아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만, <성자가 떠나시는 날>은 ‘지구 역사상 한 번뿐’이다. <성자가 이 땅에 계실 때> 휴거를 이루었으면, 성자가 떠나실 때 천국 황금성으로 같이 떠나 혼인 잔치를 하는 영광을 누렸을 것이다.

6. 성자가 떠나실 때 <황금성>으로 같이 못 가고, 이제야 깨닫고 서두르는 자는 늦게라도 ‘휴거의 영’이 되면 되는 대로 <황금성>에 가게 된다.

7. 성자가 급한 소리를 하실 때는 꼭 정신 차려라.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은 절대 급한 소리를 하지 않으신다.

8. 성자께서 급절하게 말씀하시며 재촉하실 때 보통으로 하고, 하찮은 것들을 끊지 못하고, 휴거에 잠을 자듯 하여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못 갔으니, 이제 뒤늦게라도 행하여 ‘자기 영’을 완성시켜 완성되는 대로 <황금성>에 가서 성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

9. 휴거되려면, 그만큼 ‘자료’가 필요하다. 휴거되는 데 필요한 자료는 곧 ‘휴거 말씀’이다.

10. 휴거를 완성시키려면 그만큼 <휴거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성자가 떠나셨으니 이제는 가끔씩만 <휴거 말씀>을 해 준다. 그래서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그리도 말씀해 주실 때, 그때가 <휴거될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했어야 된다.

11. <휴거의 최고의 기회의 때>에 못 한 자들은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동안 계속하며 휴거를 완성해라. 늦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늦게 하는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된다.

12.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뭐든지 빨리하게 된다.

13. 지금은 <휴거의 가장 급절한 때>가 지났기에 <휴거 말씀>이 잘 안 나온다. 이제는 <전에 해 줬던 휴거 말씀>을 읽고 새기면서 하나하나 행하여 <휴거>를 이뤄야 된다.

14. 신랑이 “보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아라.” 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여 나와서 맞는 자가 ‘최고로 복된 자’다.

15. 성자는 떠나가실 때 휴거된 영들을 1차로 <천국>에 데리고 가셨다. 이들은 신랑이 떠날 때 같이 간 신부들이다. 그때 성자와 같이 못 간 영들은 앞으로 휴거되는 대로 <천국>에 오게 하신다. 신랑이 먼저 떠나신 후에 신부가 뒤따라 가는 것이다.

16. 항상 ‘때’가 있다. 고로 항상 ‘때에 해당되는 말씀’을 급히 해야 된다. <휴거가 가장 급절한 때>에는 ‘휴거 말씀’을 해 주고, <급절한 때>가 지나면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 준다.

17. <겨울의 때>가 지난 후에 <여름>이 되면, ‘눈’을 기다려도 눈이 안 온다. ‘눈’을 보려면, 다시 겨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18. <휴거 말씀>도 ‘때’가 돼야 나온다. 성자가 <휴거>에 대해 직접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그동안 해 주었던 휴거 말씀>을 읽고, <그동안 해 주었던 휴거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말씀대로 행하여 휴거를 이루자.

19. ‘때’를 놓치면, 후에는 꼭 후회하게 된다.

20. ‘때’를 알고 맞은 자가 최고로 행복한 자다.

21. <지난 때>를 놓쳤다면, <지금 이때>는 놓치지 말아라. 후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결심의 강도’와 ‘마음의 강도’를

높이고 ‘그동안 못 한 것들’을 꼭 행하여라.

<2015년 3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신부로서 휴거된 자들>은 이 지구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
2. <성약역사로 와서 신부로 휴거된 영들>은 천국에서도 최고로 좋은 <황금성>에 간다. 그 자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다.
3.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명예자나, 권세자가 누리는 영광은 <휴거되어 황금성에 가는 영광>에 비하면 1억 분의 1도 안 된다.
4. 이 세상에서 평생 영광을 받아도 <황금성에서 1분 동안 받는 영광>만큼도 안 된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영광일 뿐이다.
5. 신부로서 휴거되어 가는 <황금성 천국>은 ‘수백 가지의 실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그 값은 ‘지구 100억만 개’를 팔아도 못 만드는 값이다.
6. 육체 30억 명을 가지고도 ‘영 한 명’을 못 만들듯이, 지구 70억 개를 팔아도 ‘황금성 천국의 값’이 안 된다.
7. 이렇게 귀한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은 없다.
8. 평생 수고해서 <휴거>만 된다면,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이다.
9. 자기 인생을 바쳐 삼위를 위해 살고, 역사를 위해 살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며 휴거를 이루며 산 자들은 “행한 대로 정녕코 갚아 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영광’이 영원히 끝이 없도록 최고로 받게 해 주신다.
10. <자기 육의 몸>과 <영의 몸>은 ‘자기 것’이다. 이와 같이 <신부로 휴거된 영들에게 천국의 집과 성>은 ‘자기 것’이다. ‘개인 것’이다. 우주는 광대(廣大)하듯이, <천국 세계>는 광대하고 무한하다. 천국에는 <한 개인의 성>인데 ‘지구’만한 성도 있다. 그래도 ‘영’은 빛같이 빨리 다니면서 사용하니, 그 크기가 적당하다.
11.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최고로 고난을 많이 받지만, 최고로 행복하고 영예로운 권세자다. 그다음 최고로 행복하고 영예로운 권세자가 있으니, 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를 통해 성삼위를 사랑하며 신부로서 살면서, 휴거를 완성한 자들이다.
12.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휴거된 영들에게 ‘천국의 기본 구조’는 다 주신다. 그러나 기본 터전 위에 ‘황금성의 자기 집과 정원’을 더 지으려면 자기가 그만큼 행해야 된다.
13. 자기가 행하는 대로 ‘천국의 기본 구조’에다가 ‘황금성의 자기 집과 정원’을 계속해서 더 지어 가게 된다.
14. 자기 육의 행위가 <휴거>를 좌우하고, 자기 육의 행위가 <황금성의 집과 정원의 구조>를 좌우한다.
15.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때’다.
16.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육으로 인한 유혹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어도 ‘이 귀한 육신’을 가지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 성자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17.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삶의 터전'으로 창조했다.

18. <어머니의 태>는 생명이 잉태되어 지구 세상에 나와 살기 위해 성장하고 인체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19. <이 세상>은 '어머니의 태'와 같은 역할을 한다.

20. <모태>에서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유산되면, 생명은 그대로 죽어서 지구 세상을 구경도 못 해 보고 끝나듯, <지구라는 태>에서 '자기 영'을 만들지 못하고 '휴거'를 이루지 못하면, 영이 사망으로 유산되어 '죽은 영'으로 끝나고 만다.

21. <구원과 휴거>는 '황금성 천국에 가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준다. - 이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만 천국같이 누리다가 끝난다. 그 <영>은 영원히 '죽은 영'이 되어서 영원히 '사망'에 갇혀 살게 된다.

22.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아는 자'만 알고 행하여 얻고, '모르는 자'는 모르고 살다가 끝난다.

23. '하나라도 더 배우고 아는 자'가 자기 육신의 운명, 영혼의 운명을 좋게 결정짓는다.

24.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해라. 그리함으로 <생명을 구원>하자. <생명 구원>은 '자신의 휴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성자와 분체의 몸'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한다.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은 '칼'과 같다. 칼로 고기를 썰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리한 칼'이라도 한두 번만 썰다고 고기가 썰리지 않는다. '예리한 칼'로도 여러 번 썰어야 고기가 썰려서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라도 '합당한 시간'만큼은 들어서 말씀해 줘야 충분히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 준다.

2. <말씀>은 '돌을 깨는 석공의 쇠팅치'와 같다. <설교 시간>은 '말씀의 망치'로 인간의 뇌와 마음의 그릇된 것들과 궁금한 것들을 깨부수어 궁금증과 의문을 풀어 주는 시간이다. 고로<말씀의 망치>로 한두 번만 때리면, 그것이 마음의 그릇된 것들과 궁금증이 다 깨져 없어지지 않는다. 설교 시간이 모자라면, 머리에다 모순을 그냥 달고 가게 된다.

3. <설교 시간>은 조각가가 조각을 해 나가듯, 성자께서 보낸 자의 욕을 쓰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조각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말씀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4. <설교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떼어 낼 것'은 떼어 내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어 '자기 욕과 혼과 영의 형상을 예쁘고 멋있게 만드는 시간'이다.

5. <설교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깨닫고, 말씀을 더 달라고 간구해라.

6.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귀>로 듣는데, 누구는 더 감동받고 실천해서 엄청난 것을 얻고, 누구는 덜 감동받고 실천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하늘의 도움을 못 받아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한다.

7. <말씀을 실천하여 얻는 자>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여 못 얻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마치 '부자'와 '거지' 같다.

8. 누구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누구는 말씀을 '보통'으로 여긴다. 이는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9. <생각>이 '칼'이며 '무기'다.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원자폭탄이 되고, 전투기가 되고, 조약돌이 되고, 바위가 된다.

10. <말씀>을 ‘금’같이 귀히 여겨라.

11. ‘말씀을 귀히 안 듣고 안 지키면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들으면, 목숨같이 귀히 듣고 지키게 된다.

12. 말씀을 귀히 듣는 자들만 따로 빼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러면 말씀을 귀히 듣지 못하여 말씀을 못 들은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를 모르고 오해하고, 등을 돌리기도 하고, 또 얻을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13. 말씀을 귀히 듣고 매일 생각해라. 그래야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탄’을 물리치고, ‘삼위의 행하심’ 알고 함께 행하며 살게 된다.

14. <말씀>을 통해 ‘삼위의 행하심’을 깨달아라. 삼위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모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해 줘도 무지 속에 상극하여 서운해하고, 오해하고, 등을 돌리게 된다.

15. <말씀>을 귀히 듣고 무지를 벗어나, 제대로 알고 자기 욕과 혼과 영을 온전히 만들어라.

<2015년 3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받은 자>가 주인이다. 애인이다.

2. <받은 자>가 주인이고 애인이니, 그 사람보다 더욱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자는 없다.

3. <가치를 알고 귀히 여기는 자>가 주인이 되고, <그것을 애인같이 귀히 여기는 자>가 애인이 되어 관리하며 살아간다. - 만물도, 진리도, 사람도 그러하다.

4. 필요하게 쓰는 만큼 귀하다.

5. 어떤 것은 ‘자기’만 귀히 여기지, ‘다른 사람들’은 귀히 여기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많다. ‘자기 취향, 자기 수준’이 있기 때문이다.

6. <만물>도 <사람>도 <진리>도 ‘자기 취향, 자기 수준, 자기 차원, 자기 생각’과 맞아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

7. 인간의 마음과 개성대로 ‘귀히 여기는 것’이 다 다르다. 또한 처음에는 귀히 여겼어도 가다가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는 팔아 버리고, 보통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8. 시대에 따라 좋아하고, 자기가 성장함에 따라 좋아하고, 자기 생각의 차원에 따라 좋아한다.

9. 성장하여 큰 자는 차원이 높으니 귀한 것을 안다. 아니까 귀히 보고 좋아한다. 성장하지 못한 자는 차원이 낮으니, 몰라서 귀한 것도 안 좋아하고 보통으로 여긴다.

10.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을 보면서 살아도 그것을 안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살았기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좋아한다. - 자기 체질, 생각, 사고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11. ‘산과 계곡’을 좋아하는 자는 ‘바다’보다 ‘산과 계곡’이 훨씬 더 좋다 하고, ‘바다’를 좋아하는 자는 평생 ‘바다’만 좋아한다.

12. <자기 생활 터전>이니 ‘산’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바다’를 더 좋아하기도 한다.

13.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뇌의 차원 만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기뻐하고 쓰며 누린다.
14. <같은 만물>을 쓰고 봐도 가치를 알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만큼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린다.
15. <뇌>가 굳고 <마음과 생각>이 굳으면, 마치 무릎을 꿇고 있다가 다리가 저려서 못 느끼듯, 몰라서 못 느낀다. - 만물도 그러하고, 진리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 고로 배우고, 알고, 뭉친 것을 풀고, 차원 높여 깨닫고, 가치를 앎으로 인해 '주인'이 되고 '사랑하는 애인'이 되어 살아라.
16. <이 시대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배우고 알아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 차원이 높아져서 '이상적인 삶'도 살게 되고, 휴거되어 '최고로 좋은 황금성 천국'으로도 가게 된다.
1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축복의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면, <육의 세계>에서도 얻고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살게 된다.
18. 알고, 받고, 행하는 자만 안다.
19.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인간이 주는 축복>과 다르다. <인간이 주는 축복>은 육에 속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육과 영에게 주시는 것으로서 영이 영원히 누리게 된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은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기뻐하며 누리고, <인간이 준 것>은 '준 그 사람'과 함께 누리게 된다.
21. 축복을 준 자와 함께 누리게 된다. 누가 축복을 줬느냐가 중요하다.
22. 사랑도 준 자와 함께 누리게 된다. 누가 사랑을 줬느냐가 중요하다.
23. 하나님이 줬느냐, 사람이 줬느냐. 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24.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큰지 작은지 결정된다.
25.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뿐'이다.
26. <세상 사랑>은 '사망'에다 놓고 하는 사랑이다. '산지옥'에다 놓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
27.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가 보낸 구원자의 사랑은 '사망에서 이끌어 내어 구원해 놓고 생명권에서 하는 사랑'이다. 고로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되어 '그 영'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
28. <세상 사랑>은 받아도 '사망권의 사랑'인 고로, 점점 더 '사망'으로 가게 된다.
29. <사망권의 말씀>은 받고 행해도, 행할수록 '사망권'으로 자꾸 가게 된다.
30. <시대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자가 주신 새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 행할수록 '빛의 세계'로 가게 되어, 그 영이 휴거되어 '영원한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된다.
31. <휴거>는 오직 '전능자가 보낸 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시대 구원의 사명자'에게만 있다.
32. <세상 재물>은 '육이 있는 한'까지 있고, <영의 말씀의 재물>은 '육신 평생, 영혼 영원'까지 있다.
33. 돈이 많아도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하게 쓰지 못한다.

34. <만사의 절대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2015년 4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지구 세상의 사람’을 데리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축복을 주시며, 삼위의 뜻을 행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하신다. - 이 ‘두 가지 핵심’만 알면, 삼위가 행하시는 수천 가지의 방법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고 깨닫게 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어떻게 역사하고 돕고 행하시는지 알아야 그 행하심을 오해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기뻐하며, 삼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3.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대하라. <삼위일체의 행하심>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 모르면 불평, 불만, 원망, 오해의 길로 빠지고, 결국 등지게 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첫째, 감동을 주시며 순리적으로 행하신다.
5. <감동의 역사>는 가장 이상적이며 순리적인 역사다. 가령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지적받으니 마음이 상하고 위축감도 생긴다. 그러나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감동받고 깨닫고 안 하면 즉시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에 만족감과 기쁨이 차고 넘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둘째, 틀고 막으며 역사하신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하는 일’을 못 하게 틀고 막으시며 ‘그 가는 것’을 못 가게 틀고 막으신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뜻’도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
7. 첫째, 감동시키기. 둘째, 뜻이 아닌 것은 틀고 막기. - 이 두 가지 방법은 ‘성삼위가 행하시는 방법의 핵심 답’이다.
8. 분체도 성삼위의 방법대로 크게 이 두 가지로 도우며 같이 행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고 막으며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직접’ 행하시고, 때로는 ‘그 육으로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고, 때로는 ‘만물’을 통해 행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통해 행하시고, 때로는 ‘합당한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
10. <죽을 곳>인데 모르고 가고 있고, <고생 길, 고통 길>인데 모르고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육성이 강해서 좋아하며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감동을 주시며 못 가게, 못 하게 하신다. - 그래도 계속 가고 계속 하니, 그때부터는 상황을 틀어 ‘가던 길’을 막으시고 ‘하는 일’을 막으신다.
11. 사명을 맡았어도 전환할 때가 되었거나, 그 일과 안 맞을 때나,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할 때는 감동을 주고 상황과 여건을 틀며 교정해 주신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을 모르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등을 돌리지 말아라. 삼위의 뜻에 따라 행하는 분체와 사역자들을 욕하고 미워하지 말아라.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앞날’을 다 아시고 역사하신다. 감동을 주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 줄 때는 ‘사는 길, 더 잘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14. 구원하는 사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 성자의 말씀과 방향을 전해 줬을 때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삐죽삐죽하며 빠치고, 오해하고, 은근히 욕하고,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는 자다.

15. <자기 방법>이 생명의 길이나, <성자의 방법>이 생명의 길이나.

16. 성자께서 너를 어떤 길로 인도하겠느냐. 너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겠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느냐. - 이를 진정 깨닫는다면, 성자가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것이다.

17. 사람이 <육성>이 강하면, ‘하지 말라는 것’과 ‘뜻이 아닌 것’을 자꾸 한다. 그러다 다치고, 사고도 당하고, 문제도 생기고,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한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의 육과 영이 다치지 않게, 해를 당하지 않게, 죽지 않게 미리 감동을 주시고 틀고 막으신다. 그러나 “건물이 무너진다. 차가 뒹군다. 사기 당한다. 비행기가 추락한다. 다친다.” 하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하지는 않으신다. 감동을 주고 틀고 막으며 역사하신다. 이것이 곧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 강력하게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19. <앞날>은 ‘하늘의 비밀’이다. 고로 ‘하늘이 보낸 사명자’외에는 누구에게도 다 말해 주지 않는다. 고로 내용을 몰라도 감동을 주거나 상황을 틀고 막으면,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하늘이 보낸 사명자’를 믿고 ‘그 말’을 듣고 행해야 된다.

20. 첫째, 감동시키기. 둘째, 틀고 막기.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잠깐만!” 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감동을 주시며 틀고 막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육신도 영혼도 재산도 해를 당한다.

22. 삼위일체는 특히 <이성 죄>를 안 짓도록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틀고 막으신다. <이성 죄>를 지으면 ‘창조 목적’이 깨지기 때문이다.

23. 삼위일체는 특히 <말씀>으로 감동을 주며 틀고 막으신다. 고로 평소에 생활할 때 늘 말씀을 생각해라.

<2015년 4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24. 인간이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가거나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 분체도 직접, 혹은 천사나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감동을 주어 못 가게, 못 하게 하신다. 그래도 가고, 그래도 하면 상황을 틀어서 안 되게 하신다.

25. 첫째, 감동시키기. 둘째, 뜻이 아닌 것은 틀고 막기. - 이는 삼위가 인간에게 크게 행하시는 두 가지 비밀의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비밀을 알았으니, 매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꼭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삼위께 간구해라. 그리고 꼭 삼위의 역사하심대로 하겠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삼위께서 이 두 가지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맡기고, 삼위와 분체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자기 뜻>도 더 좋게 이룬다.

26. ‘지혜롭고 큰 사람’이 되어라. 지혜롭고 큰 사람은 삼위가 감동을 주고 틀고 막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한다. 그러다 자기가 해를 피한 것을 알고는 성삼위께 더욱 사랑과 영광을 드린다.

27. ‘무지하고 작은 사람’은 삼위가 감동을 주고 틀고 막으면, 자기 육성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오해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해 버린다. 그러다 해를 당해 놓고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셨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등을 돌린다.

28. 세상에든, 섭리사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기 인생의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참 많다. 정신이 정상인 아니다.

29. 너의 욕, 혼, 영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오직 너를 ‘구원의 길, 휴거의 길, 잘되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대상’으로 삼고, ‘푸념을 퍼붓는 대상’으로 삼고 사느냐. 삶의 기저귀를 차고 사는 철부지 어린아이다. 나이 든 철부지나, 나이 어린 철부지나 어서 ‘정신의 수준, 생각의 수준,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인격 있는 신부’로서 살자.

30.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잘되게 해 주기 위해서 ‘상대의 것’을 틀어 안 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 계시>로 <감동>으로 강하게 역사하시어 그것을 행하여 얻게 하신다.

31. 어느 때는 ‘지금’ 자기가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은 처음에는 잘 안 되게 상황을 틀기도 하신다. 이는 ‘해’를 피하고 ‘때’에 맞춰서 더 좋게 해 주시려 함이다. 이것을 모르니, 처음에는 “지금 줘도 해가 안 되는데, 왜 지금 안 주시지? 왜 상황을 트시지?” 하며 불평한다. 그러다 자기가 해를 피하고 더 좋은 것을 얻고 겪은 뒤에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한다.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좋아하고 감사하니까, 삼위는 영광을 안 받을 수 없으니 찼찼하게 영광을 받으신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나를 사랑해서 더 챙기신다. 하늘의 뜻에 맞추고 때에 맞추어 더 잘해 주시려고 어련히 알아서 틀고 막으겠냐. 감사 감격이다. 기쁘다.” 하며,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는 진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조건>을 세운 자다.

33. 삼위 앞에는 항상 ‘감사, 영광, 기쁨, 사랑’이다. 이런 자가 <참신부>다.

34. ‘때’를 골라 가면서, ‘상황’을 골라 가면서, ‘자기 입장’을 골라 가면서 삼위일체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참신부>라 할 수 없다.

35.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환난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기쁨 때나, 좋을 때나, 삼위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삼위 앞에는 언제나 ‘감사, 감격, 웃음, 사랑, 영광’으로 대하며, 끝까지 그 행하심을 따라라. - 이런 자가 <최고 신앙의 신부>이며,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며, <최고의 인격을 갖춘 휴거의 신부>다.

36. 삼위의 행하심을 끝까지 보아라. 주의 행하심을 끝까지 보아라.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결국 좋아서 사랑해서 더 좋게 해 주기 위함이다.

37. 똑같이 <신부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신부’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못 되기도 한다.

38. 지금은 <신부 시대>다. 고로 ‘신부’로 살 자들을 택하여 ‘완전한 신부’가 되도록, 자세히 가르쳐 주어 ‘신부’로서 행하게 하신다.

<2015년 4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39. 완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고, 감동을 주시며 상황과 여건을 틀어 역사하신다. - 이때 깨닫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도우시고 살리신다. - 이때 서운함을 타거나, 오해하거나, 등을 돌리고 안 하면 큰 해를 보게 된다.

40.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더 좋게 해 주시려고, 해를 피하게 해 주시려고, 감동을 주며 상황과 여건을 틀어 주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간구한다.

4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작고 큰 사고’를 두고, ‘죽음’을 두고, ‘축복과 화’를 두고, 늘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서 행하신다. -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등을 돌린다. 이런 근성은 ‘사탄의 근성’이니, 꼭 고쳐라. 그래야 죽을 데서 살고, 다칠 데서 피하고, 고생할 데서 피하여 유익이 되고 복을 받게 된다.

42. <인생에서 최고로 큰일>이 무엇이나. 첫째, ‘육신’을 죽음에서 살게 해 준 일이다. 둘째, ‘영혼’을 죽음에서 살게 해 준 일이다.
43. <인생의 기쁨>이 무엇이나. <낙>이 무엇이나.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님과 함께 해 준 것을 생각할 때다. 이것을 잊으면 ‘기쁨’이 죽는다. ‘사랑’이 죽는다.
44.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너를 도우신 일’이 무엇인지, ‘너를 살리신 사연’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찾아내라. 그래야 감사와 기쁨과 희망이 솟아난다. 이것을 모르고 잊고 살면 ‘희망’도 ‘낙’도 없다.
45. 평생 인생을 살면서 ‘사랑과 기쁨과 낙’을 누리라고 <인생에서 최고로 큰일>을 해 주었다. ‘너의 육’을 죽을 데서 살려 주었다. ‘너의 영’을 지옥으로 가는 데서 살려 주었다. 모두에게 해 주었다. 이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전능자를 사랑하며 살아라.
46. 성자께서 ‘신부’로 택하실 자들은 다 지켜 주셨다. 그들을 찾아 이 복음을 전하자.
47. ‘백 번, 천 번, 만 번’을 지켜 주셨는데 ‘한 번의 감사와 사랑’도 없이 사는 자가 있고, ‘한 번’을 지켜 주셨는데 ‘백 번, 천 번, 만 번, 평생’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가 있다. - 누가 사랑하는 자이겠느냐.
48.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
49.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부른다.
50.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른다.
51. 이해는 또 다른 이해를 부른다.
52. 감사가 넘치는 자는 사랑도 넘친다.
5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감동을 주시는데도 무시하면, 두 번째로는 틀고 막으신다. 그런데도 무시하면 그때는 매질하시고, 병으로 치시고, 고통이 닥쳐도 안 도우신다.
5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상관있는 자’가 되어라. 누가 상관있는 자냐. 그 말씀을 귀히 듣는 자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55. ‘이해와 사랑’이다. ‘관심과 사랑’이다. ‘순종과 사랑’이다.
56. 삼위일체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뿐이다.
57. 삼위일체의 행하심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삼위일체의 역사가 자기와는 상관없게 된다.
58. 삼위일체를 사랑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백 마디의 사랑한다는 말’보다 ‘하나의 순종’이 더 크다.

<2015년 4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59. <인간의 생명의 한계>는 ‘의학을 총동원하여 자체로 숨을 쉬는 데까지’다.

60.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의학을 총동원하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숨을 못 쉬는 한계’가 오면, 그때는 방향을 달리해야 된다.
61. 하나님께 간구하여 더 살게 해 주셨으면, 생이 언제 끝나도 더 할 말이 없다. 오직 감사뿐이다.
62. 생명의 한계가 다 된 사람을 붙들고 살려 달라고만 하지 말고, 성삼위가 역사해 주실 때 ‘그의 육신’은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 기도하지 못하니 ‘그 육’을 대신하여 기도해 주고, ‘그 영’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최선을 다해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여라.
63.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육들’도 일어나고 ‘영들’도 살아난다.
64. 인간이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도 성자도 안 해 주실 때가 있다. 안 해 주려 함이 아니다. ‘때’에 맞춰서 ‘더 좋게’ 해 주려 함이다.
6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가장 적기’에 ‘때’에 맞추어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며 역사하신다.
66. <못 하게 트는 것>도 전능자의 실력이며, <하게 트는 것>도 전능자의 실력이다. 전능자가 못 하게 트실 때는 인간으로서 자기 책임분담을 다하여라.
67.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더 좋게’ 해 주시려고 틀고 막으신다는 것을 모르면 기도도 필요 없다 하고, 애간장만 태우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불평한다.
68. 인자는 ‘하늘 운명’을 지고 간다. ‘세상 죄 짐’을 지고 간다.
69. 인자는 오직 ‘하늘이 열어 준 길’로만 간다.
70. 인자는 오직 ‘하늘의 뜻 길’만 따라간다.
71. 주는 자도 ‘하나님’이시며, 가져가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72.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죽은 후에 돕는 것이 크냐. 살아 있을 때 돕는 것이 크냐.
73.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된 후에 찾아가는 것보다, 살아 있을 때 전화로 한 번이라도 통하는 것이 크다.
74. 죽은 후에 가면, 만 번을 불러도 ‘육’은 대답을 못 한다.
75.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간이 살아 있을 때’ <땅의 때>와 <하늘의 때>에 맞춰서 도우신다. 이것을 알고, 틀고 감동을 줄 때 원망 없이 감사해라.
76.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77.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진다.
78. 신앙에 있어서도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살아 있고, <마음>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느끼고, 감사 감격하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79. 자기 육과 영이 살아 있을 때 성삼위가 도와주신 것들을 생각해야 기쁨이 오고, 낙이 오고, 성삼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80. 시대 구원의 사명자를 낳은 여인은 지구 세상에서 한 명뿐이다. 그 여인은 그로 인해 ‘칼로 가슴을 찌르는 심정의 고통과 큰 환난’을 받았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다. 그리고 시대 사명자를 위해 ‘어머니’로서 ‘따르는 자’로서 끝까지, 최고로, 진정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로 인한 ‘영광’이 참으로 크다.

81.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도 울더니만,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였구나.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왜 그리 상황을 틀고 막고 감동을 주시는가 했더니, ‘웅장하고 찬란하고 멋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기 위해서’였다.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공하는 데 있어서 ‘때’를 모르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2. 육적 성공도, 영적 성공도 ‘때’에 맞춰서 행해야 이룬다.
3.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는 꼭 ‘때’가 들어 있다.
4. <때>는 축소하면 ‘시간’이다.
5. <때>를 확대하면 ‘날짜’다.
6.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때, 시간, 날짜’를 거스르며 살면,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
7.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때>를 창조하시어, 우주 만물과 영의 세계가 <때>에 따라 운행되게 하셨다. 그리고 삼위는 <때>에 따라 행하신다.
8. <때>는 ‘질서’이며, ‘하늘과 땅의 법’이다.
9. 오늘이 지나야 내일이 오고, 겨울이 가야 봄이 온다. 이 <때>는 ‘질서’이고 ‘하늘과 땅의 법’이라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고, 때에 맞춰 살아야 된다.
10. 신호등의 빨간불이 꺼져야 파란불이 켜진다. 이 <때>가 바뀌면, ‘질서’가 깨진다.
11.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멈춰 서고,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지나가야 된다. 이 <때>를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 -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때>에 맞춰 행해야 사고 없이 잘된다.
12.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 <계절의 때>에 맞춰 행해야 잘되고, 승리하고, 성공한다.
13. 밥 먹을 때 안 먹으면, 못 먹고 끝난다.
14. 건강할 때 건강관리 하지 않으면, 병들어 고생하고 죽는다.
15. 배울 때 안 배우면, 무지로 끝난다.
16. 아기를 낳을 때가 지나고 늙은 후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
17. 생명을 전도해야 할 때인데 몰라서 못 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그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기도 한다.
18. 생명을 관리해야 할 때인데 몰라서 못 하고,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면, ‘그 생명이 살아날 기회’를 놓친다.

19. 깨달아야 할 때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무지와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을 벗어나지 못한다.
20.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못 하고 끝난다.
21. 때에 행하는 것이 '기회'다.
22.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깝게 끝난다.
23. <휴거의 때>인데 몰라서 못 하고, 신경 쓰지 않아서 못 하고, 가치를 몰라서 안 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만다.
24. <때>는 성공과 소원과 꿈을 몰고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를 모르니, 그 때에 행하지 못하여 '기회'를 잃고 만다.
25. <구원자가 올 때>, <성자가 오실 때>, <성자가 지상에서 역사를 펴 나갈 때>, <성자가 가실 때>, <휴거 때>를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목숨 걸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때와 기회'를 놓치고 후회한다.
26. 성약 재림 역사, 휴거 역사, 신부 역사로 와서 살아도 <때>를 알고, <때>를 알았으면 관심 가지고 신경 쓰며 그 때에 목숨 걸고 행해야 성공한다.
27. <때>를 알아야 <때>에 맞춰 행하여 '기회'를 잡고 '얻을 것'을 얻게 된다.
28. <때>에 맞춰 행하면 '평생의 한 번뿐인 기회'를 잡기도 하고, '평생에 딱 한 번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도 한다.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때, 만사의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태양이 뜰 때와 질 때다.
2. <하나님의 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곧 올 때와 갈 때다. 성자의 재림 때와 휴거 때다.
3. <때>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시작의 때 (올 때) - 과정의 때 끝날 때 (갈 때)다. 이 <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같이 하나이고, '영, 혼, 육'과 같이 하나다.
4. 인간은 <하나님의 때>, 곧 '올 때 과정의 때 갈 때'는 꼭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5.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때>는 첫째 '구원자가 태어난 날, 곧 성자가 재림한 날'과 '성자가 떠나는 날'이다.
6. <성자 승천일>은 '휴거 날'이다. '천사장이 나팔 부는 때'다. 이 날은 지구가 생긴 이래, 구원역사 6000년 이래 '딱 한 번뿐'이다.
7. <휴거 날>과 <휴거 기간>은 다르다. <휴거 날>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날뿐'이다. 이때는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이 나팔 부는 때'다. 성자가 이 땅에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지상에 재림하신 후에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300선 이상의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떠나시는 날이다. 성약역사에 와서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룬 영들만 <천국 황금성>에 데리고 가서 혼인 잔치를 한다. 종급, 자녀급에서 믿고 행하다가 죽은 자들의 영과 순교자들의 영도 이 날 휴거되어 천국에 오르는데, 이들의 영은 <신부들이 거하는 황금성>이 아닌, <다른 차원의 영계>에 각각 거하게 된다. <휴거 기간>은 '이 시대 구원자의 육신이 땅에 살아 있을 때'까지다. 이 기간에 시대 말씀을 듣고, 구원자를 믿고, 성삼위를 사랑하여 신부로서 살면서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룬 영들은 차례대로 <천국 황금성>으로 오르게 된다.
8. <성자 승천일>에 천사장은 나팔을 불었고, 성자는 지상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룬 영들'을

데리고 하늘로 오르셨다. 이때 천군 천사 수십 억 명이 땅과 하늘을 가득 덮었다. 성자가 맨 앞에 서서 떠나시고, 그다음에 구원자의 영이 가고, 그다음부터 행렬을 맞춰 떠났다. 행렬은 어떻게 되는지 밝히지 않는다.

9.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대로, 그 날은 하나님만 아셨다. 성령님과 성자만 아셨다. 그래서 성자는 <휴거 날, 성자 승천일>을 앞두고 6년 동안 급절하게 휴거에 대해 가르치시며 휴거되라고 외치셨고, 2014년 1년 동안은 곧 떠난다고 하며 더욱 급절하게 휴거되라고 외치셨던 것이다. 그러다가 2015년 1월부터는 <휴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자가 떠나시면 우리를 지켜 줄 <말씀>을 더욱 깊이 주셨다. ‘주의 뜻을 달아라. 잊으면 죽는다. 잠깐만! 이제는 전도하자.’ 하셨다. 이때는 성자가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황금성>에 가시기 전에, 잠깐 천국에 올라 <신랑 집 천국의 혼인 잔치>를 위해 준비하시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10. 성자가 이 땅에 계실 때, 2015년 3월 15일까지는 ‘성자와 함께 떠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휴거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마지막 남은 몇 개월이라도 목숨 다해 행했으면,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휴거되어 성자의 함께 <황금성>으로 갔을 것이다.

11. 성자는 떠나시려니, 떠나시기 3일 전에 ‘날짜’를 말씀해 주셨고, 떠나시기 8시간 전에 ‘시간’을 말씀해 주셨다.

12. 성자는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서 <재림과 휴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

13.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창조>이며, 오메가는 <휴거>다.

14. <창조>로 시작하고, <휴거>로 거둔다.

15. <나무>로 시작하고 <열매>로 거두듯, <육신>으로 시작하여 <휴거된 영>으로 거둔다.

16. 이 시대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난 날, 성자는 재림하셨다. 그리고 그 육신을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며 먼저 ‘생각과 육의 행위’가 변화되는 <육적 휴거>를 진행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영적 휴거>를 선포하시며 ‘육의 행위를 통해 변화된 영혼’이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루면, <신부로 휴거된 영들이 거하는 천국 황금성>에 간다고 말씀하셨다.

17. <성자 승천일, 휴거 날>까지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룬 영들은 성자와 함께 행렬을 맞춰 <황금성>에 올라서 혼인 잔치를 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이룬 자들이다.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이제 휴거된 영의 도움을 받아 <자기 육>을 가지고 더욱 충성과 사랑으로 행하여 400선, 500선, 600선으로 차원을 높여야 된다.

18. <성자 승천일, 휴거 날>까지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루지 못한 영들은 성자와 함께 떠나지 못했다. 이제는 ‘땅에 남기고 간 분체’와 함께 일체 되어 남은 휴거를 이뤄야 된다. 그러면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루는 대로 <황금성>에 거하게 된다.

19. 이 시대 구원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휴거 기간>이다. 이 기간에도 항상 ‘자기 때’는 아니다. 이 시대 구원자가 살아 있는 기간 안에서도 ‘자기 때’가 있다. 그때를 놓치면 못 하고 끝난다. 이 때, 이 기회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 시대 구원자가 살아 있는 기간 중에서도 성자 승천 이후의 이때를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남은 휴거를 이루고, 휴거된 자들은 더욱 차원을 높이고, 어서 시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자.

<2015년 4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20. <성자 승천일>은 6000년의 구원역사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뿐인 역사적인 날이다.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신구약 6000년 역사를 진행하셨고, 성약역사를 시작하여 36년 동안 외쳤다. 휴거되라 함이다.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을 위해서였다. ‘과일나무’를 키워서 물을 주고 퇴비하고 가꾸다가 때가 되면 ‘열매’로 거두듯이, 구원자를 보내어 휴거 말씀을 전해 주고 행하게 하여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변화시켜서 ‘휴거의 영’으로 거둬 가신다. <성자 승천일, 휴거 날>까지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부지런히 행함으로

휴거되어 성자를 따라가야 된다.

21. 신부로서의 휴거는 오직 <성약역사>에 와서 <시대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행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한 자들만 이룬다.

22.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신부’라고 하고 자기들이 속한 곳이 ‘새 역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23. ‘부모가 살아 있을 때 못 모신 것’과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 지킨 것’도 평생 가슴에 남아서 한이 되는데, <때>를 놓치고 ‘성자가 지상에 계실 때 제대로 못 맞고 보낸 자들’과 ‘휴거 때 휴거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이 되겠느냐.

24. <성자 승천일, 휴거 날> 전까지 몇 달, 며칠이라도 ‘휴거’를 위해 100% 행한 자들은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루어 성자와 함께 <황금성>으로 떠나 혼인 잔치를 했을 것이다.

25. 성자가 떠나시는데 신부들의 육과 영이 울며 부르짖으니, 성자는 마음이 울적하여 그 자리에서 휴거시켜 데리고 가는 영들도 많았다. - 역시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이는 마치 엄마가 타국으로 떠날 때 계획에 있던 준비된 자녀만 데려가려 했는데, 못 따라가는 자녀 중에 충격 받고 애태우며 사랑으로 매달리는 자가 있으니 계획에 없었는데 순간 옷을 입혀서 데리고 가는 격이다.

26.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충분히 휴거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자기 주관에 빠져 흥청거리며 살다가 휴거되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 새로 전도되어 와서 ‘아직 성장기에 있는 자들’은 시기적으로 늦게 왔기에 어쩔 수 없이 휴거되지 못하기도 했다. - 이들은 어서 부지런히 <지난 휴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여 휴거를 이루면 된다.

27. 늦게 전도되어 남들보다 <휴거 때>를 늦게 맞았지만, 그중에서 ‘빨리 변화되어 휴거될 자들’도 있었기에 성령님은 성령 역사의 사명자를 들어서 때에 맞춰 <수료식>을 진행하며 더욱 온전히 준비하게 하셨다. - 이는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보여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명이라도 더 휴거시키기 위한 성자의 깊은 뜻’이 있었다.

28.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자기 영을 휴거시키지 못하여 성자와 함께 못 떠난 자들은 어서 목숨 걸고 하여 휴거되어라.

29. 성자가 떠나신 후 이제부터는 성자가 남겨 놓고 간 ‘성자의 육을 통해 하는 때’밖에 남지 않았다. 이때 행하여 휴거되면, 늦었지만 <황금성>으로 간다.

30. <지나간 때>는 놓쳤어도 <남은 때>까지 놓치면 정말 안 된다.

31. <지나간 때>를 놓친 자들은 ‘행하지 못하여’ 묶여서 휴거되지 못했다. 이제 <남은 때>에는 꼭 행해야 된다. 그래야 묶인 것이 풀려서 휴거된다.

32.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휴거를 완성하여 휴거된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큰 자들이며, 최고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33. 자기 영이 휴거되어 성자를 따라갔어도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게 주시는 축복’을 제때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육>을 가지고 충성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제때 행해야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영과 육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산다.

34. 성자가 떠나셨으니, 이제 성령이 오셔서 지난날을 말씀하시며 증거하신다. 지난날을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올 날을 준비하여 맞게 하신다. - 고로 ‘성령의 감동’만 받지 말고, 성령님께 ‘지혜와 총명의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행해라.

<2015년 4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35.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다. 올 때, 과정의 때, 갈 때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 아신다.

36. 그 날과 그 시는 알려 주지 않으니, 늘 말씀을 듣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다.

37. 평소에 성자가 그 욕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보통으로 듣지 않고 깨어 있어 행하며 준비한 자가 ‘그 날’과 ‘그 때’를 기쁨으로 맞게 된다.

38.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은밀하게 ‘구원자’를 통해서 행하셔야 하니 그에게는 ‘때’를 알리신다. 고로 구원자와 일체 된 자는 ‘그 때’를 알고 맞게 된다.

39. <성자 승천의 날, 휴거 날>과 <시간>도 오직 성삼위만 아셨다. 그러나 때가 되어 떠나려니, 성자는 ‘그 욕’에게만 말씀하시어 온전히 맞게 하셨다.

40. <이 시대 구원자>가 태어날 때도 지구 세상의 아무도 몰랐다. 고로 <전능하신 성자>가 다시 오셨다는 것도 몰랐다. 성자가 지상에서 ‘그 욕신을 쓰고’ <휴거의 역사>를 펴고 가실 때도 지구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41. 지구상의 큰 날은 ‘두 번’이다. 첫 번째로 큰 날은 <성자의 욕, 곧 시대의 구원자가 태어난 날>이다. 이날은 <성자가 지상에 다시 강림하신 날>이다. 두 번째로 큰 날은 <성자가 지상에서 휴거 역사를 마치고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떠나는 날>이다. 이날은 <천사장이 나팔 부는 날>이다.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로 거두어 가는 날>이다. <이 시대 구원자를 보낸 날>이 지구 세상에서 제일 큰 날이니, 하나님은 이날을 <성자가 떠나는 날, 휴거 날>로 정하셨다.

42. <봄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봄이 오고, <여름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봄을 붙잡아도 봄은 가고 여름이 온다.

43. 이와 같이 <성자가 그 욕신을 쓰고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성자가 그 욕신을 쓰고 땅에서 휴거 역사를 펼치신 후에 가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붙잡아도 성자는 떠나신다.

44. <성자가 떠나시는 날, 휴거 날>을 맞게 하기 위해 신구약 6000년 역사를 진행했고, 섭리역사 36년 동안 외쳤고, 무덤 기간을 거치며 조건을 세웠고, 지난 6년 동안은 휴거를 위해 급절하게 외쳤고, 그 기간 안에 ‘재림과 휴거, 육적 휴거, 영적 휴거, 성자 본체와 분체’에 대해서 낱알이 밝히며 <영 휴거>를 준비하게 한 것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했고, <성자 계시의 문>을 열어 주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했고, 작년 1년 동안은 “성자는 곧 떠나신다.” 하며, 작년 4월 부활절에는 성자가 떠나시기 전 마지막 부활절을 보낸다고까지 말씀했다. <성자가 떠나시는 날, 휴거 날>은 언제인지 미리 알리지 않았지만, 이 급절한 말씀을 심정 태우고 애간장 태우며 전하면서, 미리 준비하고 휴거를 이루어 성자와 같이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45. <성자 승천일>은 ‘창조 목적을 이루었음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천사장이 나팔을 부는 날>이고, 성자께서 <신부로 휴거된 영들>을 <천국 황금성>으로 데리고 가서 <혼인 잔치>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하나님이 행하신 <지상의 역사>와 <6000년 구원역사> 이래 딱 한 번뿐인 날로서 최고의 날이었다. 천하에 한 번밖에 없는 귀한 날이었다. 이런 날은 이제는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다. 다시는 없을 날이다. 그래서 이날을 미리 알려 주었다. 고로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날을 제대로 깨닫고 맛고 영광 돌린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46.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은 지구가 생긴 이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최고의 큰 날이다. 다른 날들은 이날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 지구상에서 최고로 큰 날은 <구원자가 온 날>과 <성자가 가시는 날>이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보면 ‘구원자의 탄생’을 두고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했다. 성자께서 이 땅에서 <휴거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신부들을 불러 모아 뜻을 이루고 성경을 이루

고 가셨으니, <가시는 날>도 ‘하늘의 최고의 영광의 날’이다. 이때는 여러 가지로 미리 알려 주었으니, 이날을 100% 알고 영광 돌린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어 평생 보람과 자량이 되었다.

47. 성자께서 떠나시며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자기 주관에 빠져서 딴 일을 하며,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직업, 자기 주관을 중시하다가 ‘그 한 날’마저 맞지 못하고 아쉽게 보냈다.

48. <성자 승천일, 휴거 날>에 천군 천사 수십억 명이 하늘과 땅을 뒤덮었다. 그리고 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날 아침에 성자께서 ‘시간’을 말씀하신 대로 오후 3시 50분경에 성자는 지상을 뜨셨고, 오후 4시에 휴거된 영들과 함께 행렬을 이루며 <천국 황금성>으로 떠나셨다. 행렬을 맞춰서 갔는데 <휴거 대열>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늘의 비밀이다.

49. 2015년 3월 16일 오후 4시에 성자가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자는 딴 세상에 계신다. 그곳은 영의 세계다. 그 후부터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고 계신다. - 이제부터 ‘성자가 남기고 간 그 분체와 완전히 일체 되어 행하는 때’만 남았다.

50. 성자가 지상에 계실 때는 온종일 성자와 통하며 이야기했다. 그러나 때가 지나니 한 마디도 통할 수 없다. 때가 참 무섭다.

51. 사람이 <때>를 모르면, 맞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또한 <때>를 가르쳐 주어 알았어도 미련하면, 맞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

52. 천하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자가 온 날’과 ‘성자가 떠나신 날’이다. 이때를 자신들을 위해 알려 주었는데도 귀히 여기지 않고 보통으로 대한 자들은 맞지 못하고 끝났다.

53.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누구냐. 알았는데, ‘<가치>를 몰라서 행하지 못한 자’다.

54. 성자는 지상에 계시면서 수고한 만큼 미련 없이 거둬 가셨다. 성자는 미련을 두고 가지 않으셨다. 만족하고 가셨다. 다만 때를 맞지 못하고 보낸 자들, 휴거되지 못한 자들, 자기가 행할 일을 하지 못한 자들이 아쉽고 미련이 남을 것이다.

55.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때, 남아 있는 때>가 있다. 이날을 말씀을 통해 미리 예고하며 가르쳐 주니, 이때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이때는 ‘성자가 남기고 간 분체와 완전히 일체 되어 그동안 못 한 것을 행하는 때’이며, ‘그와 함께 남은 휴거를 이루는 때’이며, ‘그와 함께 시대를 증거하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때’다. 성자가 떠나신 후에는 생각도, 행실도, 삶도 차원을 확 높이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과 육의 축복’을 다 얻고 누리며 만족하며 살게 된다.

<2015년 4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56. 휴거됐어도 본인은 잘 모른다. <육>이 아니라 <영>이 휴거되니, 자 기 영이 휴거되어 성자 따라 <황금성>에 갔어도 잘 모른다. 조금 느끼기만 할 뿐이다.

57. 아픈 것과 배고픈 것은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안다. 개미 등 곤충들은 더듬이로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물고기들도 신경세포로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다. <자기 영의 휴거>도 ‘감동, 영감, 뇌의 느낌’으로 ‘자기 영’을 감지하여 느껴서 알게 된다. 그러나 신경 쓰고 알려고 해야 알게 된다. 그래야 ‘자기 영’이 ‘자기 혼’에게 알려 주고, ‘자기 혼’이 ‘자기 뇌’에 전달하여 ‘자기 육’이 느끼면서 알게 된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 ‘혼’이 영계에서 ‘자기 영의 상태’를 보고 안다. 또한 ‘성자 계시’를 보면, 깨닫고 알게 된다.

58.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육의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다. 구원자가 먼저 배우고 가르쳐 주면, 그 말을 듣고 아는 것이다.

5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도 그러하다. 땅에서 주기적으로, 또 매일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보고 안다.

60. <자기 영의 휴거>를 분별할 때는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인식관으로 그릇 알면 안 된다. 자기 영이 휴거되지 않았는데 휴거된 것으로 알고 살면, ‘휴거의 삶’을 살지 못하니 큰일 난다. 또한 자기 영이 휴거됐는데도 육신이 몰라서 휴거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휴거 안 됐구나.” 하며 낙심하게 된다.

61. <성자 승천일>은 ‘휴거 날’이다. ‘천사장이 나팔 부는 날’이다.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룬 영들을 성자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날’이다. <성자 승천일>이 ‘휴거 날’이라는 것은 이미 그동안 말씀으로 외쳐 주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하여 ‘같은 날’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성자가 곧 떠나시니, 어서 휴거를 완성하여라.” - 급절하게 외쳤던 이 말씀만 귀히 깊이 듣고 행했다면, <성자 승천일>이 ‘휴거 날’인지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깨닫고 그날을 맞았을 것이다.

62.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었든지 ‘성자가 떠나실 때, <때>를 알고 영광 돌린 것’이 그리도 크다.

63. ‘자기 영’이 휴거됐어도 ‘자기 육신’이 모르면, <성자가 떠나시는 날, 휴거 날>을 제대로 맞지 못한다. 고로 알고 깨닫는 것이 그리도 크다.

64. 휴거됐어도 자기 육신이 모르니, 걱정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니, 사탄이 낙심시키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다가 괜히 고통 거리가 되게 하지 말아라.

65. <무지>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인다.

66. 자기가 행한 것만 계산하면 <300선 휴거 점수>가 안 나온다. 성자 와 분체가 해 준 것까지 계산해야 <300선 휴거 점수>가 나온다.

67. <휴거 점수>를 계산할 때는 ‘신랑 되신 성자와 분체의 것’까지 계산해야 된다. 계산을 잘해라.

68. <휴거된 것>을 알고 감사해라.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귀히 보고 감사해라. 기뻐해라. 매일 잔치해라. 너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을 벗어났다. 고로 섭리인이라면 누구나 성삼위와 주와 같이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음 잔치, 육 잔치’를 해야 된다.

69. 너는 꼭 지옥에 갈 사람이었다. 영원히 고통받고 살 영혼이었다. 너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 영원한 사망을 벗어났어도 ‘자녀’로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 것이었다. 믿으면서도 긴가민가하며 ‘과연 천국이 있을까?’하고 살 자였다.

70. 너를 구원해 주었다. 영원한 사망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 주었다. 자녀가 아닌 ‘신부’로서 이 땅에서 육으로도, 천국에서 영으로도 사랑받으며 살게 해 주었다. 최고의 천국인 황금성을 주었다. - 고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잔치해라!

71. 주와 함께 매일 ‘마음 잔치, 육 잔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은 좋아도 <육>은 곤고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고통받고, 삼위가 주는 복을 받지 못한다.

72. 특히 ‘휴거된 자들’은 진정 감사하며, 더욱 차원을 높여 ‘충성과 사랑’으로 행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라. 그리함으로 성삼위가 자기 육과 영에게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

73. 아직 휴거되지 못하고 휴거 중에 있는 자들도 감사해라. <남은 때>를 놓치지 말아라. 더욱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해라. 그러면 ‘분체가 살아 있는 기간’이니, 휴거되는 대로 그날그날 <황금성>에 가서 <하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300선만 넘으면 간다.

74. <성자 승천> 이후부터는 삶도, 생각도, 행실도 정말 달라야 된다.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것’으로 삼은 자들은 ‘휴거된 자들’이다.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잔치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자와 똑같은 인생이다. 얻고도 발견하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잔치하지 않으니, 얻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자와 똑같이 곤고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희망이 없는 것이다.

7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6000년 동안 역사해 주셨고, 그중에서 도 <최고의 시대인 성약역사>를 만나게 해 주셨고, 그중에서도 <본체가 살아 있는 기간에 전도되어 휴거의 때>를 만나게 해 주셨고, 본체가 50년 동안 연단받으며 성자와 함께 행하며 섭리역사 36년 동안 그렇게 외쳐 주었고, 성자께서 반세기 동안 그리도 우리를 위해 살아 주셨다.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뭘 더 해 주기를 바라느냐.

76. 평생 매일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살아도 허황된 삶이 아니다. 이미 얻었고, 발견했고, 사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77. <앞으로 다가올 이 기회와 때>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성자 승천일>인 <휴거 날> 후부터는 ‘휴거의 문’이 열렸다. 이때가 ‘본체와 일체 되어 행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때마저 놓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꼭 <개인 휴거>에 열중하여 꼭 ‘자기 때’에 휴거를 이루어 성자를 따라가자. 다른 것은 못 해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다. 또한 휴거된 자들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며 400, 500, 600...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자. 그리고 모두 신부로서, 사도로서, 영원한 사망을 벗어난 자들로서 <시대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군중을 모으자.

78. 성자가 지상에 계실 때 못 해 드려서 한이 된 것들은 이제 본체에게 해 주는 길밖에 남지 않았으니, 미련도 후회도 없이 해 드려라.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늘의 때>가 되면, 지상에서 ‘한 명’만 준비되면 하나님은 행하신다.

2.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때>에 맞춰 행하도록 미리 땅의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해 행하신다.

3. <심판>도 ‘땅의 한 사람’에게는 알리고 행하신다.

4. <성자가 오실 때>도 ‘땅의 대상 한 명’에게만 알리고 오신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성자는 이 땅에 강림하여 역사를 이루신다.

5. <성자가 가실 때>도 인원수가 상관없다. ‘휴거된 영들’이 많은 적든 ‘한 명’만 준비되면 <때>에 맞춰 행하신다.

6. 성자는 떠나실 때 ‘본체 한 명’에게는 <그 날과 그 시간>을 며칠 전, 몇 시간 전에 미리 알려 주셨다. 그리고 모두에게 알리게 하셨다. 땅에서 ‘육신들’도 알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각자 행위대로 하게 하셨다. 성자는 떠나시고, 각자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7. <신약 때> ‘성자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초림하셨을 때도 한 민족에서 ‘극히 소수’만 예수님을 알아봤다. 성자는 그들만 데리고 역사를 펴 나가셨다. 그 후 2000년 신약역사가 펼쳐지면서, 후대에는 세계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펴 나갔다.

8. 그 당세의 형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역사를 펴 나가고, 후대에는 점점 만방에 알리면서 세상이 다 알게 한다.

9. <성약 재림역사>도 그러하다. <성자 재림>도 처음에는 ‘아는 자 한 명’만 데리고 한다. 그가 ‘신부로서 조건’을 세우고 ‘성자의 육’이 되어 ‘시대 신부 말씀’을 선포한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른 소수 인원’만 데리고 <재림의 뜻>을 행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역사를 펴 나간다.

10. 아무리 차원 높은 성약역사라도 <새 역사>이기에 처음에는 안 크다. 시대가 가면서 점점 더 시대를 차지하며 커지게 된다.

11. 옛 시대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커 왔기에 현재 세계적으로 큰 것이다. 이는 마치 나이 든 자들은 40~50대까지 컸기에 20~30대 젊은이들보다 가진 것이 많은 것과 같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제 ‘때’가 왔으니, 계속해서 행하여 얻게 되고 크게 된다. <새 역사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12. 이제 ‘새 역사의 때’가 왔으니, <나이 든 기성>은 매일 잃고 늙어 간다. 그러나 <젊은 섭리역사>는 매일 얻고 웅장하게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보낸 자’는 안다. 성삼위는 ‘보낸 자’를 통해서 행하기에 ‘보낸 자’에게는 <때>를 미리 알리신다. - 고로 항상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때>를 알고 놓치지 않고 맞게 된다.

14. 온 인류와 그토록 그 날을 기다렸던 저 기성의 수십억 명은 몰라서 휴거되지 못하고 ‘성자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다시 오셔서 역사를 펴는 것’도 맞지 못했고, ‘성자가 이 땅에서 휴거 역사를 펴시고 가신 날’도 맞지 못했다.

15. 섭리인들은 다르다.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36년 동안 외치셨고, 지난 6년 동안은 ‘휴거’에 대해 극적으로 외치셨고, 2014년 1년 동안은 ‘성자가 떠나신다.’ 하며 사정하고 애원하며 더욱 극적으로 외치셨다. 그러나 핑계 대며 소홀히 함으로 <성자가 떠나신 날, 휴거 날>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영광으로 맞지 못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때>가 기다리고 있다. ‘분체’와 함께 행하며 휴거를 이루고, 휴거된 자들은 휴거의 차원을 높이고, 성령을 뜨겁게 받아 시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증거하여 생명 폭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16. <때>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고로 <때>를 두고 눈 빠지게 애인을 기다리며 준비하듯 해야 된다. <때>가 되면 불같이 뜨겁게 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

17. <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때>를 먼저 맞아야 된다.

18. <때>는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을 싸 가지고 온다.

19. 모든 소원과 꿈이 <때>와 같이 이루어진다.

20. <때>를 잘 맞고 행하는 자들은 때의 전문가이며, 때의 프로다.

21.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예고하신다. “온다.” 하고 오시고, “간다.” 하고 가신다. 인간들은 ‘그 예고’를 알고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 그래야 <하늘의 역사>가 오고 갈 때, 웅장하고 아름답게 미련 없이 맞게 된다.

22. 성자는 떠나셨으니, 성령을 받고 분체와 완전히 심정 일체, 사랑 일체 되어 행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앞길이 막히지 않는다.

23. <아직 지나가지 않은 때>는 앞으로 꼭 온다. 이때는 꼭 애인같이 간절히 기다리고 준비하며 맞아야 된다.

24. 성자가 지상에 계실 때 제때 못 하여 한이 되는 것들은 이제 ‘성자가 남기고 간 분체에게 해 주는 길’밖에 없으니, 이때를 미련도 후회도 없이 맞이하고 보내자.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경에 나오는 <부활>은 ‘육신이 죽은 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영’을 두고 한 말이다.

2. <부활>은 ‘변화’다. 육의 생각의 변화, 육의 행실의 변화, 그리함으로 이루는 영의 변화다.

3.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육과 영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살아난 것'을 두고 "살아났다. 부활됐다." 한다.

4. 구약 때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이 육도 영도 부활되었다. <구약권 종급 부활>이었다.

5. 신약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산 자들이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었다. <신약권 자녀급 부활>이었다. 그러나 무조건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신약권 부활>을 이룬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행한 자들'만 <신약의 변화와 부활>을 이루어 살아났다.

6. <이 시대 성약역사> 때는 삼위일체 중의 성자가 이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그를 통해 '신부로 부활되고 휴거되는 말씀'을 주셨다. 고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자를 믿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체 되어 살면,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부활된다. 그로 인해 더 온전하게 변화되어 '영의 휴거'를 이루면,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신부로서 사랑받으며 살게 된다.

7. 이 시대 부활은 <휴거 부활>이다.

8. 시대에 따라 '부활의 차원'이 다르다. <구약>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부활'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와 같이 아들이 되리라." 한 대로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이다.

9. 성약역사에서는 <휴거 부활>을 이룬다. <휴거 부활>이 더 이상 없는 마지막 첨단 부활로서 '성삼위의 신부가 되는 부활'이다.

10. 이 시대 성약역사로 온 자들은 <휴거 부활>로 변화되어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왔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지런히 꾸준히 끝까지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이 300선 이상의 휴거를 이루고, 300선 휴거를 이루었으면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른다.

11. <휴거>는 '부활의 할아버지'다. 신부로 부활되었으면 거기서 더 행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부활되어야 한다. 그래야 100에서 200으로, 200에서 300으로, 300에서 400으로, 400에서 500으로... 점점 더 차원을 높이게 된다.

12. 밥을 할 때 다 될 때까지 끓이듯이, 화장할 때 끝까지 하듯이, 밥을 먹을 때 끝장나게 먹듯이, 옷을 입을 때 끝까지 다 입듯이, <휴거 부활>을 이룬 자들도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행하며 '휴거의 삶'을 살아야 휴거를 완성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휴거된다.

13.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행하는 자는 쉽고, 안 하는 자는 어렵다.

14. <휴거된 자>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자'이고, '영원히 영광을 받을 자'이고, '영원한 권세와 사랑의 천국인 <황금성>을 차지하는 자'다. - 이를 진정 깨달아야 뺏기지 않는다.

15. 이 시대 부활은 <휴거 부활>이다. 이 시대 주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신부로서 삼위일체를 사랑함으로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벗어나 <신부급 부활>을 이룬 자들이 → 각자 자기가 처한 데서 더 행하여 <휴거>를 이루게 된다. 100에서 200으로, 200에서 300으로 300에서 400으로, 400에서 500으로, 500에서 600으로다.

16. 자포자기에서 부활하기. 성격 부활하기. 휴거된 자들은 더욱 열을 내며 부활하기. 휴거되고 있는 자들은 더욱 열을 내며 부활되어 휴거되기. 감사하는 것 부활하기.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것 부활하기. 주를 만나 휴거되어 사는 것을 깨닫고 기쁨 잔치하는 것 부활하기. 이것을 안 하면 육도, 마음도, 영도 아프다. 바로 사탄이 와서 낙심하게 한다. 고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걱정과 곤고함이 자기를 덮친다. 또한 하나님은 '부활되고 휴거된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휴거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니, 그 복을 못 받고 끝나고 만다.

17. 이제는 주를 증거하며 외칠 때다. <사도 시대>같이 성령을 받고 주를 증거하며 외칠 때다. 전 세계 모두가 외쳐야 된다.

18. 성자가 떠나시고 ‘성자가 남기고 간 분체와 행하는 때’가 시작되었다. 제대로 모르고 아쉽게 보냈던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을 상기하며 앞으로는 절대 미지근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더욱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기뻐하고 잔치하며 불같이 행해야 된다.

19.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깨달은 것, 행한 것들을 불같이 힘 있게 자신 있게 외쳐라. 교역자들도 외치고, 모두 외쳐라. 교회별로 교역자들부터 은혜 집회, 전도 집회를 하며 외쳐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개성대로 다양하게 역사해 주신다. - 그 터전 위에 성령의 사역자가 외쳐 주면 더욱 불이 난다.

20. 주를 만나고 역사를 만나고 부활되고 휴거됐음에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삼위와 주와 대화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하고, 주를 증거하며 외치면 ‘힘’이 오고 ‘성령’이 온다. 그러나 일하다 보면 흥분도, 열도, 힘도 고갈되니, 잔치집같이 <성령집회>를 해 주면서 힘을 줄 것이다.

21. 구원자가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겠느냐. 구원자는 휴거시켜 주면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모르는 자들도 외치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는 역사다. 자신 있게 외쳐라. 성령 받은 자들부터 외쳐라! 전체가 외쳐야 수많은 군중을 모아 <남은 때>를 찬란하게 보낸다. 이제 <남은 때>는 뜨겁게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보내야 된다.

<2015년 4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생각하는 판도’가 달라진다.

2. 기도를 깊이 간절히 하면, ‘생각하는 상황’이 달라진다.

3. <영의 세계>는 ‘심정의 세계’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심정’이 그리도 간절하고 확실하며, 그 심정과 생각대로 ‘영체’도 간절하고 확실하게 움직인다.

4. <이 세상 육의 세계>는 사람들의 ‘심정과 생각’이 흐릿하다. 무분별하다. 그래서 ‘육신의 행실’도 흐릿하여 하다가 말고, 하더라도 그럭저럭 행한다.

5. 심정이 확실하지 못하니 “왜 사나? 왜 먹나?” 하면서 <인생 사는 의미>를 못 느끼고, 확신에 처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6.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알면, 그제야 <인생 사는 목적>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러니 ‘심정과 생각’이 흐릿해지지 않고 목적을 알고 기뻐하면서 산다. ‘심정’이 뜨거우니 ‘생각’이 확실하고 흐리멍덩하지 않고, 그 심정과 생각에 따라서 ‘행실’도 뜨겁다.

7. 인간들은 자기를 창조한 ‘절대신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

8. <인간의 뇌의 생각>은 ‘육’에 속해 있기에 ‘세상 물질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다. <육신>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접하는 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9. <영>에 속하여 ‘무한한 세계의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전능자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보고 생각하면, <심정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10.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육의 몸>과 영원히 사는 <영의 몸>이 다르듯, 한계가 있는 <육의 세계>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의 세계>는 다르다.

11. 사람이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각자 다른 심정과 삶’으로 살아간다. <이 세상 육의 세계>에서 똑같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면서 <천국>에 속해 사는 자들이 있고, ‘세상 물질적으로만 살면서 <세상>에만 속해 사는 자들’이 있다.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육>을 가지고 사는데, 하늘과 땅과 같이 차이가 나게 참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속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 육>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차이가 어떠한지 모르고 살고 있다. ‘천국에 속해, 영에 속해 사는 자’는 그 차이를 알고 살아간다.

12.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사업하여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자기 삶만 알고 있다 하자. -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니,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외국에서 자기 사업지를 가지고 누리고 사는 자만 그 차이를 알고 산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다른 세계, 영원한 세계, 무한한 세계>를 얻고 살아가니, 자기만 그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알고 살아간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얻고 사는 기쁨과 보람을 모르는 자는 ‘자기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자’다.

13. 인생들은 ‘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땅과 하늘’같이 차이를 두고 살아간다. ‘육만 위해 사는 자’와 ‘육과 영을 위해 사는 자’다.

14.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아니면, 모두 ‘구시대 삶을 사는 자’이고, ‘자기중심의 삶에 속해 사는 자’다.

15. <생각>을 흐릿하게 하고 보면, ‘세상의 것들’도 흐릿하게 보인다.

16. <생각>을 흐릿하게 하고 보면, ‘영의 세계, 혼의 세계’도 흐릿하게 보인다. <생각>을 맑고 확실하게 하고 보면, 흐릿하게 안 보이고 확실히 보이고, <기억>도 확실하게 난다.

17. <영계>나 <육계>나 눈으로 ‘볼 때만’ 확실히 보인다. 보고 나면 흐릿하게만 생각난다.

18.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뇌의 생각’이 늙어서 무엇을 봐도 흐릿하게 보이고, 보고 나서도 바로 잊어버린다.

19. 깊이 간절히 기도하여 영적인 상태가 되면 ‘심정’이 맑아지고 뜨거워지게 되어 자세히 보이고, ‘생각의 판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행실’도 ‘삶’도 확실해지고 달라진다.

20. 깊이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생각의 판도를 뒤집어라. 심정의 강도를 높여라. 심정을 뜨겁게 해라. 행실을 뜨겁게 해라. 영의 세계를 느껴라. 천국 황금성을 느껴라. 성삼위를 느껴라. 주를 느껴라. 너의 영이 휴거됐음을 느껴라. 너의 영의 상태를 느껴라.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말>이 끝이 없듯이 <글>도 끝이 없다.

2. 새롭게 하라는 성자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다.

3. 성자가 떠나셨으니, 이제 새롭게 해라.

4. <휴거의 가치>를 깨닫고 휴거된 것을 감사하고,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감사해라.

5. 휴거된 자나,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나 계속해서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함으로 100에서 200으로, 200에서 300으로, 300에서 400으로, 400에서 500으로, 500에서 600으로 올라가야 된다. ‘6’은 완성수다. 모두 600까지 올라라.

6. <성경>을 ‘휴거’로 이루었다.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었다.

7. 너는 휴거됐으니 ‘영원한 지옥’을 벗어났다. 더 차원을 높여라. 또한 너는 신부로 부활되었으니 ‘휴거될 자격자’다. 거기서 더 행하여 휴거를 완성해라. 그리고 모두 주를 증거해라. 역사를 증거해라. 전체가 성령을 받고 외치며 증거할 때다.

8. 성령께서 선생을 통해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테니, 교역자들은 먼저 불을 받고 외쳐라. 자기가 외쳐야 ‘심정’이 온다. <신앙의 세계>는 ‘심정의 세계’다. <심정>이 뜨겁게 불타야 <행실>도 뜨겁게 불탄다. 교역자부터 ‘심정’이 불타고 ‘성령’에 불타서 모두 깨어나 외쳐야 된다. 그래야 자기부터 깨닫고 전체에 불을 붙인다. 이제 교역자들은 부지런히 단상에 서서 말씀을 외쳐라. 주일, 수요일, 새벽 단상을 불태우며 은혜 집회를 해 나가라. 성령님도 선생을 통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모두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낙심하고 실의에 빠진 자 없이 <휴거의 가치>를 알고 휴거됨에 감사하고,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 잔치하며, 계속해서 ‘휴거의 삶’을 살면서 <600선>까지 도전하게 해라. 그리고 시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라. 먼저 교역자들이 깨닫고 매 단상마다 열을 내어 성령으로 외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앞으로의 때>를 찬란하게 맞이할 수 있다. 그 터전 위에 <성령집회>를 하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성령집회를 다시 시작한다.)

9. 성자 승천 후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자 승천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고, <성자 승천 날, 휴거 날>을 깨닫고, 이제는 미지근하게 살지 말아라. 늦더라도 완전히 깨달아 낙심하고 실의에 빠진 자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며, 시대를 담대하게 외치자.

10. 영계나 육계나 ‘앞의 장애물’을 뚫어야 된다.

11. 네 앞의 ‘산’을 넘든지 뚫든지 해야 된다.

12. 네가 <한 차원>을 더 높이려면, ‘네 앞의 산’을 넘어가야 된다.

13. <전에 바라던 것>은 ‘현재’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 <현재에 바라는 것>은 ‘앞의 산 너머’에 있다. ‘미래의 시간 속’에 묻혀 있다. 고로 도전해서 차지해야 된다.

14. 항상 <미래의 것>은 ‘현재’에 있지 않다. <미래의 것>은 ‘미래’라는 때까지 가서 수고하여 얻는 것이다. - 그러니 앞으로 얻을 것을 놓고 도전하고,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도전해라.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네가 행하면 ‘단점 하나’가 생긴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안 하면, ‘행하여 얻을 몇 가지’를 못 얻게 된다.

2. 가령 집을 지으면 주위의 땅값이 올라간다고 안 지으면, 너는 별판에서 살아야 된다. 사 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3. 때가 지나면 잡초 밭이 되어 끝난다. 지금 사용해라.

4. 사람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면, 묵밭이 되어 영경귀로 끝난다.

5. 자기 당세가 황금기다. 산이고, 대지고, 사람이고 <황금기 때> 사용하지 못하면 ‘마음’에서 끝나고, ‘꿈’에서 끝난다.

6. 땅을 사서 10배, 100배 가치 있게 쓰기다.

7. 사람도 전도하고 가르치고 사명을 줘서 10배, 100배 가치 있게 쓰기다.

8.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귀히 쓰느냐’가 문제다.
9. 어떤 사람은 작은 땅에다 별장을 짓고 빌딩을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드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산다. 구경은 ‘남의 산, 남의 땅’도 할 수 있다.
10. 자기 인생도 그러하다. 마음이 넓고 생각이 넓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은데 사용하는 사람만 도 못하다.
11. 실속 없는 인생은 실족하며 사는 인생이다.
12. 실속 있게 살아라.
13. 알차게 살아라.
14. <겉>은 허술하지만, <속>은 밭에 감춰진 보화의 세계다.
15. <작품 돌>이 깨지고 무너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깨지고 무너진 돌을 꺼내다가 <다른 형상>을 발견하여 놀라 기절했다. 그것을 발견하고 1년 내내 정신 못 차리고 반 미쳐서 좋아하며 살고 있다.
16. <고목나무>가 꺾여서 실망했지만 거기에서 ‘다른 희망’이 없는지 찾다가 보니, 뿌리에서 <굵은 새싹>이 솟아나 있었다. 결국 그곳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1000년 빛을 발하게 되었다.
17. <육신 세계의 꿈>이 무너지니 <영적 세계의 새순>이 났다. 결국 거기에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으니, ‘휴거의 열매’였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열매다.
18. 이제 바람이 불어 고목나무가 꺾일 때만 기다릴 것 없다. 꺾어 버리자. 또 새순이 나서 하늘까지 뻗어 올라,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니 아름답고 신비하다.
19. <구시대 고목나무>를 꺾은 자들은 <새순>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다. ‘새 역사 휴거 열매’다.
20. <육성>과 <세상 사랑>을 꺾지 못한 자는 ‘고목나무 인생’ 되어 살아가니 안타깝다. 불행하다. 겉만 번질번질 빛이 난다.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휘날리니, 고목나무에 모여들던 파리와 나방들마저 사라진다.
21. 새벽부터 주가 오라고 그렇게도 불렀는데, <세상 사랑, 이성 사랑, 자기중심>에 빠져서 주를 등지고 살더니만, 네가 보는 데서 ‘하늘까지 닿는 휴거 인생 살아가는 것’을 당당히 보여 주게 되었다. 네 등에 악창이 나서 썩은 진물이 하수도같이 흘러가니 지옥 고생이로구나.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견디려면 그 힘이 ‘우주만큼’이나 필요한데, 네가 가진 힘은 겨우 ‘네 몸뚱이 하나 움직일 힘’뿐이다.
22. ‘전능하신 하나님’과 ‘시대 구원자’를 가치 없이 대하고, 우습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외면하면 - 지구 세상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같은 꼴이 된다.
23. 흐르는 물이 바다까지 가야 확인하고 믿을 것이냐.
24. ‘시대 구원자’는 수십 년 동안 애간장을 태우면서 외쳤다. 못 들어서 못 했느냐. -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면 영원토록 묻는 자가 없어서 자기 사연을 고하지도 못하니, 그 괴로움도 영원까지다.
25.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서 자기 사연 고한다고 풀리겠느냐. 그곳에서 나오겠느냐. 다 필요 없다.
26. 꽃다운 흥안 소녀 시절일 때 그 시기를 ‘자기’를 위해 써 놓고서, ‘희망의 꽃’이 지고 ‘열매’도 없이 돌아오면 주가

받아 주겠느냐. <자기 육신> 가지고 <자기 영>을 구하는데, 이미 ‘서산의 해’가 저 버려서 시간이 없으니, 하늘과 땅에서 너를 구할 자가 없구나.

27. 왕이 그렇게도 너를 구하려고 울고 짜고 빌어 대며 간구했는데, 속이고 또 속이면서 냉정하게 가 버렸다. 그러나 네가 속인다고 왕이 속겠느냐. 속인 만큼 ‘어두운 함정, 실패의 함정’에 빠져서 진흙탕에 머리끝까지 들어가니 그제야 왕을 찾겠느냐. 너 대신 택한 자들을 찾아서 ‘신부’로 만들고 <황금성>에 가게 했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사라졌다. 인생 어려서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핑계이며 거짓이다. 성자까지 그리 차갑게 대했으니, 네 운명이 그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구촌에 사는 인생, 누구든지 다 그러하다.

28.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도 한다.

29. 세상 모든 자들이 나를 냉랭하고 우습게 대하며 외면했다고 내가 낙심하고 살았다면, 나도 저들같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하늘을 뚫고 땅을 뚫고 휴거되어 <영원무궁한 황금성 천국>에 가게 되었다. 영원한 이상세계의 영광이 내 것이 되었다.

30. 나를 냉랭하게 대하고 외면하고 가서는 고통을 당한 후에 돌아와 잘못했다고 회심하는 자들아. 내게는 그 고백이 일점일획도 필요 없다. 내가 잘해서 <영화로운 황금성 천국>에서 살게 되었으니,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누구의 위로도 필요 없다. 나를 외면하고 떠나간 자들을 내 뇌에서 잊었으니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31. <영원무궁한 영광의 세계>에서는 ‘승리자들’만 모여서 ‘승리한 사연’만 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님 이야기만 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련다. 그때 가서 고목나무 꺾인 이야기도 푸짐하게 내놓으며 해 주련다.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물>은 ‘물’로 대하고 <불>은 ‘불’로 대해야 금방 통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의 존재자라서 ‘사랑’으로 대해야 금방 통한다.

2. 전기는 플러스극을 마이너스극으로 대할 때 금방 통하여 빛을 발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할 때는 성삼위와 같은 질인 ‘사랑’으로 대하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상대체’가 되어서 대해야 금방 통하고 ‘목적의 일’을 하게 된다.

3.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일체 돼야 전기가 통하여 목적인 빛을 발한다.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전기 제품을 가동시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대할 때는 인간이 ‘사랑의 상대’가 되어 살아야 첫 번째로 <창조한 목적>을 행하고, 그다음에 수만 가지를 각종으로 행하신다.

4. 그 존재의 ‘상대’가 될 때, 금방 통하게 된다.

5. 존재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가 필요하니, ‘상대’가 되어 주면 통하게 된다.

6. <상대>란, 마치 절벽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발을 디디는 곳’과 같다. 절벽을 내려갈 때는 ‘발을 디딜 곳’을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존재이든 ‘상대’가 되어 주면 금방 통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사랑의 상대’만 되어 주면 금방 통한다.

8. ‘어제’ 온종일 봤어도 ‘오늘’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

9.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봤어도 사람의 뇌의 구조상 ‘생각’을 해야 기억나는 것이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 말씀을 배우고, 성삼위를 알고, 은혜를 받았어도 생활 가운데 생각하지 않으

면 생각나지 않는다.

11. <생각>은 본 것을 기억나게 한다.

12. 인간은 보고,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간다.

13. 생각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모르고 산다.

14.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도 금방 지난 것같이 느껴진다.

15. 꿈으로 계시해 줄 때도 ‘생시에 많이 본 것’을 가지고 계시해 주신다. 고로 그것을 생각하면 계시를 깨닫는다.

16. 사람과 동물은 ‘생김새’가 차이가 있듯이, ‘생각’도 차이가 있다.

17. 동물의 아이큐가 90이 넘는다 해도, 그것은 짐승 차원일 뿐이다. 인간의 아이큐 90과는 차원이 다르다.

18. ‘표’를 주었다. ‘표시’를 했다.

19. 아버지가 요셉에게 ‘표시’를 했으니, 그 표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입힌 것이었다.

20.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표’를 주셨다.

21.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표’를 주신다.

22. 어떤 사람은 ‘얼굴’에 표를 해 났고, 어떤 사람은 ‘몸’에 표를 해 났다.

23. <말씀>을 뇌에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는 ‘머리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다.

<2015년 4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자>는 ‘주체’이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승천’하신다.

2. <신부로 변화된 자들>은 ‘상대’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휴거’된다.

3. 성자는 ‘승천’, 신부로 변화된 자들은 ‘휴거’다.

4. <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때의 휴거>를 위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역사해 오셨다. 그 터전 위에 ‘이 시대 구원자’를 보내어 <성약역사>를 시작하시고, 이 시대 구원자가 약 50년 동안 조건을 세우며 행했고, 핵적으로 섭리역사 36년 동안 몸부림쳐서 겨우 휴거시켰다. 고로 <휴거된 것>은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이며, 최고의 권세이며,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5.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구원자’를 만나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부활>을 이루고, 거기서 <더 좋은 부활>을 이루고, 결국 <휴거>되는 것이다.

6.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소원 한 가지’를 이뤄 드린 자가 ‘수백만 가지’를 이룬 자다.

7. <휴거된 자>는 영원히 ‘두 가지’를 보장받는다. 첫째,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보장된다. 둘째, 사랑의 대상체로서 성삼위께 영원히 사랑받으며 <천국 황금성>에서 사는 것이 보장된다.

8.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흥강사들을 보고 “저 분은 꼭 천국에 간다.” 했다. 그러나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 자들이 너무 많다. 혹은 재림주가 곧 온다고 외치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1999년이 되도록 안 오니, “성경은 거짓이다. 속았다.” 하며 많은 자들이 ‘불교’로 가기도 하고 ‘신앙을 탈선’하기도 했다. <신부로서 최고 휴거의 뜻>을 이룰 섭리역사에 와서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도 신앙이 파선되어 <천국>을 박탈당하는 자들도 많았다.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 <천국>에 간다는 보장은 무엇일까? 오직 <휴거>뿐이다! 이 시대에 휴거된 자는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고 <천국 황금성>을 보장받는다.

9.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역사인 <성약 신부 역사>로 와서 ‘시대 구원자’를 100% 믿고 따르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삼위’를 사랑하며 산 자들은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벗어나 <신부급 부활>을 이루었다. 거기서 <더 좋은 부활>을 이루다 보면, 결국 <휴거>된다. 이 시대에 <휴거>를 이뤘으면 <천국 황금성>이 보장된다.

10. <휴거된 영들>은 ‘성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다. 영원히 ‘지옥’을 벗어났다. 영원한 ‘천국 황금성’이 네 것이 되었다. 누가 휴거됐느냐. 너 아니냐. 너 외에는 휴거된 자가 없으니, 네가 감사하고 기뻐해라.

11. 이미 ‘휴거된 영’은 <지옥>을 벗어나고 <황금성>을 차지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 행여 ‘자기 육신’이 ‘자기 영’이 휴거됐는지 몰라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휴거 박탈’이 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는 ‘육신’만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불만이고, 그러한 ‘육의 상태’로 인해 하나님이 휴거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도 못 받게 되니, <자기 마음과 생각과 혼>과 함께 <자기 육>만 고통이다.

12. <육>이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휴거된 영>도 속상하고, 300선에서 더 차원을 높여야 되는데 <육>이 그러고 있으니 <영>이 더 차원 높게 변화되지 못하여 희망도 작아진다.

13. 아직 휴거되지 못했더라도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해라. ‘이 시대 구원자’를 만나서 ‘시대 말씀’을 듣고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벗어나 <신부로서 부활된 자>가 누구냐? 너 아니냐. 고로 네가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할 자격자’다. 고로 네가 기뻐하고 감사해라. 성자가 떠나셨어도 아직 <휴거 기간>이니, ‘더 좋은 부활’을 이루어라. 그리함으로 <300선 휴거>를 완성하여라. 네가 자격자다.

14. 성자는 지구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천사장이 나팔 불고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떠나셨지만, 이 시대 구원자가 살아 있는 기간까지는 <휴거 기간>이니 이 기간 안에 휴거를 이루면 휴거되는 대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황금성>으로 간다. 고로 이때가 정말 ‘주’를 증거하며 외칠 때다. 그리함으로 많은 군중을 모아 ‘신부’로 휴거시켜라.

15.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니, 곤고함과 걱정과 염려가 와서 덮쳐 버린다.

16.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면, 곤고함과 걱정과 염려를 덮쳐 버린다.

17. <지옥 고통>을 받아 봐야 <영원히 지옥을 벗어나게 보장을 받는 것>이 그리 크다는 것을 깨달으려 하느냐.

18. <휴거된 자>는 ‘영원히 지옥 안 가기 보장’이다.

19. <휴거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지옥 안 가기 보장’이 안 된다.

20. 아무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이라도, 아무리 성삼위와 시대의 구원자를 잘 믿고 충성하던 섭리인들이라도 어느 한 날에 각종으로 타락하고 중간에 신앙을 탈선하고, 더러는 악평하고 핍박하기도 한다. 왜 그럴까? 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아무리 잘 믿어도 ‘휴거되지 않은 자’는 언제 신앙이 파선될지 모르니 <지옥에 안 간다는 보장>이 없고,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 ‘육’으로 쏠려 본성이 폭발할지 모른다.

22. ‘육성과 본성’이 튀어나오다가 결국 변질되고, 신앙 탈선하고, ‘주’를 배신하게 된다. 휴거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을 보장 못 한다.

23. 오직 <휴거>로만이 ‘지옥에 안 가기 보장’이며, ‘항금성 가기 보장’이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고로 꼭 휴거되어야!

24. 휴거된 자가 누구냐? 또한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가 누구냐? 너 아니냐? 고로 너희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며, 성삼위와 주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라. 절대 허황된 삶이 아니다. - 자기 마음과 정신과 행위와 사랑으로 감사하니 쉽다.

25. <휴거된 자>나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나 계속해서 ‘휴거의 삶’을 살면서 <600선>까지 도전해라. 그리고 시대 복음을 담대하게 외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라.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 허황된 삶이 아니다.

2. 어떤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웃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잔치도 열고, 좋아서 받은 미쳐 살았다. 주위에서 한 명이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 미쳐서 사는 것은 좀 허황된 삶이 아니냐? 꿈과 환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냐?” 했다. 이에 그 사람은 말했다.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며 살아도 전혀 허황된 행동이 아니다. 지금보다 배나 더 기뻐해도 마땅하다. 내 말을 들어 봐. 15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자가... 바로 나다! 그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사고, 별장을 사고, 차도 사고, 회사도 인계받았는데, 그 회사도 지금 잘되고 있다.” 했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며 사는 것이 허황된 삶이 아니구나.”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더욱 증거해 줬다.

3. 가령 시골의 한 여자가 황태자와 결혼하여, 황후가 되어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자.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고 오히려 곤고하게 살게 되고, 황태자와 결혼하지 않은 다른 여자와 다를 것 없이 마음 고생하다가 죽는다.

4.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보화’로 인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잔치하며 살지 않으면 얻은 보람이 없고, 얻지 못한 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곤고하게 살게 된다.

5. <인간으로서 천하에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잔치하며 살지 못하면, 얻지 못한 자와 똑같은 차원에서 곤고하게 살게 된다.

6. <천하에 귀한 것>을 얻었어도 ‘자기가 얻은 것이 귀한 것임을 모르는 자’는 육적 무지, 혼적 무지, 영적 무지자다.

7.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과 희망, 영원한 사랑, 영원한 감격과 영광을 주는 자’는 뒤로 제쳐 놓고, ‘걱정·번민·염려·영원한 고통을 주는 것’만 중시하여 미련하게 살아가기에 바쁘다.

8. <영원한 휴거>를 얻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해 주신 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며 살지 못하니, 받았어도 ‘그로 인한 보람’이 없는 것이다. 그 욕도, 마음도, 생각도, 혼도 무지한 자요, 소경이요, 앓은뱅이다. 고로 마음이 곤고하고, 기쁨이 떠나 버리고, 감사와 희망과 사랑의 가뭄이 들게 된 것이다. 오히려 ‘발에 숨겨진 보화를 찾으러 다니면서 기쁨과 희망을 느끼는 자’만도 못한 불쌍한 자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로 인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고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육신이 곤고함과 빈곤함에 처해 힘들게 살게 된다.

10. 구원받았든지, 신부로 부활됐든지, 휴거됐다면 그 가치와 기쁨은 ‘평생 가는 가치이며 기쁨의 에너지’다. 주를 만나 구원받았고, 성삼위를 사랑하게 되었고, 영원한 세계에 가는 데도 가치를 모르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자는 <영>이 구원받았어도 <육>이 모르고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니 결국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영>이 휴거됐어도 <육>이 몰라서 ‘휴거의 삶’을 살지 못하니 ‘휴거 박탈’은 되지 않지만 생각의 무지로 인해서 <육>이 곤고함과 걱정 속에서 고생하며 살게 된다. 그 곤고함과 걱정은 <육>이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연속된다.

11.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고 살면서 ‘기쁨, 보람, 희망, 사랑’을 더욱 뜨겁게 하며 살 수 있는데, ‘첫사랑’을 상실하고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가치’를 잃고 사니, 결혼한 보람도 없고 감격도 잃은 채 살아간다. - 신부로서의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12. <휴거된 기쁨>을 알고 “나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고 미치도록 감사 감격하고, 더욱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찾으며 사는 자는 ‘그 기쁨과 사랑’으로 인해 ‘폭발적인 능력과 힘’을 받아서 더 얻으며 살게 된다.

13.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어도 ‘휴거의 가치’를 알고 미치도록 행복해하며 “바로 내가 휴거되어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고 <영원한 황금성>을 차지할 자다!” 하며 희망으로 사는 자가 그 힘으로 금방 휴거된다.

14. 휴거됐어도 ‘기쁨과 감격과 사랑’ 없이 그저 신앙생활만 하니 곤고함이 밀려오고,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휴거의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15. 가치성을 회복해라. 주의 가치, 시대 말씀의 가치, 시대 구원의 가치, 구원역사 6000년 만에 힘겹게 이뤄 낸 휴거의 가치, 천국 황금성의 가치, 신부로서의 삶의 가치, 너의 가치, 성삼위의 가치를 알고 회복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잔치해라. 그제야 네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닫고, ‘그 기쁨’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덮어 버리고 더욱 차원 높여 얻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16. 사람이 가치성을 회복할 때까지, 제대로 알게 될 때까지 ‘곤고함, 걱정, 염려, 근심, 불안함’이 떠나지 않는다.

17. 가치성을 회복하고 제대로 알게 되는 순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 나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2015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8. 구원받았고, 주의 사랑도 받았고, 신부로 부활되었고,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고, 휴거됐는데도 ‘보통 삶’을 살고 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길에서 황금 덩이나 공짜로 주우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서 미친다. 그것보다 10억만 배, 100억만 배 좋은 <구원과 휴거>다. 그런데도 ‘가치’를 모르니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 감격할 줄 모른다. 그러니 그 대신 ‘세상에서 오는 걱정·근심·염려·곤고함’이 밀려와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 살아간다.

19. 너는 휴거되어 <영원한 지옥>을 벗어나고 <신부로서 영원히 성삼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천국 황금성>을 얻었다. 혹은, 주를 만나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되어 가고 있으니, 네가 <영원한 지옥>을 벗어날 자이며 <천국 황금성>을 차지할 자다. 고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과 주를 부르고 매일 교통하며 살아라. 그로 인해 ‘휴거된 자들’이나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나 600선까지 오르고, 주를 증거함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라. 그래야 세상 걱정이 밀려와도 기쁨으로 다 덮어 버리고 살게 된다.

20. 섭리인들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것>을 얻었고, 또 얻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기쁨, 감사, 사랑’에 참 인색하다. 그러니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과연 ‘시대 구원자’를 만나서 사는 것인지, ‘성자’를 믿고 사는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고 사는 것인지, 별 차이 없이 살고 있다. 안 믿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저 기성인들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

21. 성령집회를 100번씩 해 줘도 은혜는 그때뿐이다. 왜? 기쁨과 감사 없이 살기 때문에, 은혜와 성령을 줘도 금방 식는 것이다. 오늘부터 네가 섭리역사를 만나 무엇이 달라졌는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

하고 감격하고 기뻐해라. 가치를 알아라.

22. 너는 누구를 만나서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온 인류가 기다리는 ‘그’를 만나서 살고 있고, 지구 세상에서 이때 한 번뿐인 ‘휴거 때’를 만나서 살고 있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도 듣지 못할 ‘귀한 시대 말씀, 신부 말씀, 휴거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다.

23. 너는 이 시대 새 역사로 와서 ‘시대 주’를 만났고, 그를 통해 ‘성경의 인봉된 말씀’을 듣고 따랐고, ‘신부’로서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다. 너는 지구 세상에 한 번뿐인 ‘휴거 때’를 만나서 사니, 휴거될 자격자다. 또한 이미 휴거되어 <영원한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여, 성삼위의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되었다. 그런데 왜 ‘세상에서 살 때’와 똑같고, ‘기성에서 살았을 때’와 똑같고, ‘휴거되기 전의 삶’과 똑같으나. 그러니 곤고하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집회만 기다리지 말고, 구원의 가치, 주의 가치, 휴거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래야 곤고함에서 벗어난다.

24. <휴거의 기쁨>은 영원하다. ‘지구 전체’를 얻었다 해도 <휴거된 기쁨>에 비하겠느냐. 미련하다. 정말 모르고 산다.

25. 그동안 너희가 해 온 것 + 성자와 분체의 조건 +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 +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삼위를 사랑하며 영광 돌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휴거>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도대체 우리를 휴거시키기까지 얼마나 애쓰셨냐고 하며 그 마음을 알아드려라. <휴거> 때문에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6000년 구원 역사를 해 오셨고, 그 터전 위에 성약 역사를 세우셨고, 아담 때와 예수님 때처럼 성약 역사 무덤기간 동안 분체의 육신을 안 뺏기려고 성자가 발에 피가 나도록 다니시며 애쓰셨다. 삼위일체께서 너를 휴거시키려고 그리 몸부림치며 애쓰셨다. 이것을 알아드리면서, 매일 기쁨과 사랑의 잔치를 해라. 네가 휴거되기 위해 행해 온 것의 터전 위에 그 ‘사랑과 열정’으로 남은 휴거를 완성하고, 휴거의 차원을 더 높이게 된다.

27.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을 너무나 안타깝게 보냈다.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뿐인 날’을 그리 보냈다. 늦었지만, 성자에게 애쓰셨다고 하며 뜨겁게 기쁨과 사랑으로 인사해라. 성자는 기다리고 계신다.

28. <시대 구원>은 남자와 여자가 사귀는 정도이고, <신부로서의 휴거>는 전능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결혼하는 격이다. 고로 휴거되면, 영원히 성삼위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 그러나 <육>은 그 가치를 거의 모른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배우고 깨달아,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29. <부활의 기쁨, 휴거의 기쁨>을 알고 하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러면 ‘성령의 불’이 자체적으로 늘 타올라 식지 않고, 그 힘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리며, 힘과 능력을 받아 그 힘으로 전도하고, 주를 증거하고, 수많은 생명들도 휴거시켜 영원한 기쁨으로 살게 해 주고, 그로 인해 계속 더 얻고 잘된다.

30. <휴거의 가치>를 알고 혼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삼위를 사랑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살 때 바로 ‘불덩이’가 된다. 고로 즉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 역사는 ‘성령 역사, 주 역사, 가치 역사, 영계 역사, 사도 역사’다.

31. 너는 불행하냐, 행복하냐.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난다. 행복에 미쳐서 노래하고 춤춘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날아다닌다. 성령이 너를 깨우쳐 주시니 간구하고 대화해라.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이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2. 인간 스스로 신이 되게 창조하면, 인간이 결국 하나님을 등지기에 그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3. 인간이 전능하신 절대 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신’이 되게 창조하셨다. 그 <육>도 ‘육 차원으로 신’이 되어 살게 된다.

4. 세상적으로 인간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되게는 창조해 놓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기 때문이다. -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신이 되게 하셨다.

5.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육적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잡신'이 되게 창조하셨다.

6.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육도 영도 변화되어 '신'이 되게 하셨다. 곧 그 <영>도 창조주를 닮아 '신'이 되게 하셨고, 그 <육>도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아 '신의 생각과 행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려 했을 것이다.

7. 인간이 '인간'끼리 하나 되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마치 '같은 질'로 하나 되는 격과 같다. 이는 여자끼리, 남자끼리 하나 되는 격이다. 또한 전기의 마이너스극끼리 하나 되는 격이다. - 고로 <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8. '전능하신 절대 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 되면, 남녀가 하나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듯 <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9. <유형 세계>는 <무형 세계>와 하나 돼야 '원 존재의 대상 신'이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10.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를 통해 성삼위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육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해야,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 살게 된다. 그로 인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삼위의 마음'과 같이 되고, 그 <혼>도 '삼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영>도 '삼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그러면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그러면 신이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믿고 섬긴다고 해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되지는 못한다. 인간 스스로나 다른 것들은 '상대성이 없는 존재'라서 삼위와 구원자가 없이는 <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남자들만 있는 격이고, 여자들만 있는 격이라 <신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11.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고 '삼위가 보낸 구원자'와 일체 돼야 <신의 말씀>을 받게 되어, 그로 인해 <육>도 <영>도 1차, 2차, 3차 '신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그 외에 스스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다 없어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어 '열매 없는 과수원'으로 끝나고, '구원 없는 사망'으로 끝난다.

12. 신부로서 휴거돼도 육이 아닌 <영>이 '천국 황금성'으로 간다. <육>은 죽을 때까지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땅에 묻힌다. 휴거되면 <영>이 '천국 황금성'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 <육>은 세상에서만 사니 '세상 것'을 얻고 누린다. 고로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갔어도 '육'은 실감이 안 나고 안 느껴진다. 고로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다. <육>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정신을 차려야 자기 영이 휴거되어 육이 세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하고 신령해져야 자기 혼을 통해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아 자기 육신이 기뻐하며 삼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13. <육신>이 천국에 못 가도, <혼>이 <영>과 일체 되어 천국에 간다. 고로 실상은 <육>이 천국에 가는 격이다. 마치 '한약'을 달여서 '액체'로 짜서 먹듯이 한다. <육>은 한약을 달이고 난 '한약 찌꺼기'이며, <혼>은 '짜낸 한약 액체'와 같다. 이와 같이 <혼>이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과 '육의 행위와 공적'을 다 가지고 <영>과 일체 되어 사니, <육>이 천국에 간 것과 같다.

14. <육체>는 물질이다. 한계가 있다. 수한이 있다. 늙고 망가져서 '영원한 영의 세계'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영체>는 본질이 다르다. 비유컨대 '같은 물'이라도 열리면 '얼음'으로 변화된다. '얼음'이 되면 안 썩는다. 그러나 '물'은 썩고 증발되어 없어진다. <육>은 '물'과 같고, <영>은 '변화된 얼음'과 같다. 고로 <영>은 썩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영>은 '육의 생각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1차, 2차, 3차 점점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자기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함으로 <자기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시킨 것이다. 세상에서도 '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변화시키면 썩지 않고 존재하듯, '육의 행실'로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15. 또 비유컨대, 돌 속에는 철이 조금씩 들어 있다. 돌 속에서 철을 빼내어 ‘차’를 만들고 ‘각종 기계’를 만든다. 이와 같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된다.

<2015년 4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귀한 계시 (성령)

16. <영>이 휴거되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더욱 돕고 함께하신다. 고로 육의 형통함이 휴거 전과는 다르다. <영>이 휴거되면 <육>도 더 강해져서 유혹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악평자도 이긴다. - 그러나 <육>이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그 혜택을 보게 된다.

17. <영>이 휴거됐어도 <육신>은 살아 있다. 고로 ‘휴거된 영’은 ‘자기 육신’을 때마다 자유롭게 돕는다. 휴거된 만큼 ‘능력 있는 영’이 되었고,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고, ‘신’같이 되었기에 사탄도 다스리고 세상의 것을 알고 다스린다. 고로 <자기 육>을 더욱 돕는다. 그러나 <육>이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휴거된 자기 영혼’과 더욱 일체 돼야 그 혜택을 보게 된다. 휴거된 영의 육신은 천사들이 많이 따라다니며 돕는다.

18.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과 성자가 옆에 계셔도 인간이 모르고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안 가지면 별 혜택을 못 받는다. 이와 같이 자기 영이 휴거됐어도 자기 육신이 모르고 관심이 없으면, 휴거된 영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19. 성령님이 옆에 계셨는데 선생이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니, 도울 것만 도우시고 대화는 안 되었다. - ‘휴거된 영’과도 그러하고, ‘너를 돕는 천사’와도 그러하다. 늘 찾고 대화해라.

20. <자기 정신과 생각>이 있어도 <육신>이 정신 차리고 생각을 써야 ‘생각’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받고, 살아 있어 실감 나는 삶을 살게 되고, 밭에 숨겨진 각종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21. 영이 휴거되면 100% 흑암과 지옥에는 안 간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러나 <육>이 그 기쁨과 가치를 알고,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려야 된다. 자기 영이 휴거됐다는 것을 모르고 못 느끼면, 휴거되지 않은 자와 같아서 <영>은 휴거의 기쁨을 누려도 <육>은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게 된다. 고로 <영>이 휴거된 후에도 600선 이상으로 가야 하는데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르지 못한다.

22. 휴거됐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하지 않고, 휴거의 기쁨과 가치를 모르고 살면, 휴거되지 않은 자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 - 휴거된 자도,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도 매일 성삼위와 구원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100만 명이 자기의 애인이 되어 살아 주는 영광보다, ‘휴거되어 받는 영광’이 더 크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물질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라도 ‘휴거된 자의 영광’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 <육>은 그 영광을 못다 받으니, <영>이 ‘천국 황금성’과 ‘그로 인한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다 받게 된다. 그러나 <자기 육>이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당하는 만큼 <영>이 그 영광을 다 받는다.

23.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얻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화를 주신 자께 감사하며, 주신 자와 같이 누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마음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리며 보람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 그로 인한 혜택을 본다. 휴거된 자,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도 그러하다.

24.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평생 감사하며, 그것을 해 준 자와 같이 기뻐하며 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해 주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 10억 명이 힘을 합쳐도 못 해 주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을 해 준 것이다. 그런데 해 준 후에 보니, 안 해 줬을 때와 별 차이 없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 해 준 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알고 보니 ‘가치’를 모르고 있었다. ‘가치’를 모르니 기뻐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천하의 귀한 것을 소원하여 그것을 주었으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해 준 자’를 사랑하며 ‘해 준 자’와 같이 누려야 된다. <휴거>도 그러하다. ‘휴거되게 해 주신 성삼위와 구원자’를 사랑하며, 함께 누리면서 평생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있으면 기쁨도 희망도 없이 세상 걱정, 근심, 염려에 묻혀 그 전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육신이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무지로 억울하게 살다가 죽는다.

25. 특별히 얻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기 육’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야 기쁘지,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몰아닥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스럽다. 기뻐하며 살다 보면 그로 인해 얻게 된다. <인간의 뇌 구조>를 깨닫고 살아라.

<2015년 4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귀한 계시 (성령)

26. 영이 휴거되면 <영원한 신부의 세계, 영원히 성삼위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세계, 천국 황금성>을 얻는다. 휴거됐으면 영원히 뺏기지 않는다. 보장되었다. - 고로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일’을 한 것이다. - 고로 <자기 육>이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허황된 삶이 아니다. 현존하는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지구 역사상 육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인생들 중에서 ‘신부로서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으로 가서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산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 고로 영이 휴거됐다면,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해 준 자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는 자도 그리하여라.

27. 휴거된 자는 <영원한 지옥>을 면했다. 그러니 <육신>이 평생 매일 기뻐하며 감사할 일 아니냐. 사람이 머리만 제 때 안 감아도 간지럽고 꿈꾸한 고통을 못 참고 지옥 같다 하고, 두통이나 치통만 있어도 못 참고 괴로워서 지옥 같다 하는데, <영원한 지옥>은 어떠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루만 지옥에 가 봐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이를 간다. 겪은 자가 말하니 믿고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직접 겪게 하여 깨닫게 할 것이다.

28. 지옥의 고통은 마치 숯불에 고기를 굽듯이, 지옥 불 속에서 자기 몸과 살이 타 들어가는 고통이다. 그래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이 지글지글 타 들어가며 고통을 겪는다. <영의 몸>이라서 죽지 않으니, 그로 인해 수백만 가지 고통을 받는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영이 지옥에 간다. 자기 영 구원하기도 그리 어렵다. 전능자를 믿고 사랑하고, 전능자가 보낸 구원자를 알고 따르며, 구원자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는 것이 그리도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재벌이 되고, 세상 명예를 얻는 것이 쉽다. 구원받고 ‘자기 영을 지옥에 안 보내기’가 그리 어렵다. 이보다 1000배나 더 어려운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6000년간 구원 역사를 펴 오시다가, 이 시대에 구원자를 보내어 행하시는 <휴거 역사>에 와서,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전능자를 100%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여 자기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인 신부>로 만들어 휴거시키는 것’이다. 자기 재산을 다 현금하는 것도 쉽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어렵고 귀한 것이 있으니, 곧 <휴거>다. 마치 태양을 따 오기같이 어렵다. 하나님도 6000년 동안 공을 들여 그 터전 위에 성약 때 <휴거>를 완성하셨다. 시간을 두고 <자기 육>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100% 온전히 지키고 행하며, 성삼위를 사랑하고, 구원자와 100% 일체 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인정받고,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제’로 변화시켜야 하니, 휴거되기가 하늘의 태양을 따 오기같이 어렵다. 고로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평생 기뻐하고 감사해라.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휴거를 완성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시대 구원자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평생 그리 살아도 허황된 삶이 아니다.

29. <휴거의 혜택>은 ‘영’으로 받아야지, <육>은 받아도 너무 커서 감당을 못 한다. <육>은 육으로 땅에서 휴거돼야 감당하고 기뻐하며 누린다.

30. <영의 세계>는 육으로 육신 세계를 보듯이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을 듣고 믿고 행하여 알고 느끼는 것이다. 또한 기도하여 자기 혼으로 보기도 한다.

31.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꼭 ‘눈’으로 보고 믿으려 하느냐. 그가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고 사랑하는 것이다.

32.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라.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라. 영에 대해서 배워라. 천국에 대해서 배워라. 지옥에 대해서 배워라. 구원과 휴거에 대해서 배워라. 이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 주는 ‘참구원자’를 만났다면, 너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이다.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차지해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며, 주신 자를 더욱 사랑하면서 그로 인한 혜택과 축복을 더욱 누리라. 이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영예를 얻은 자다.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자기 상대'를 찾는다. 결혼하기 위해, 혹은 함께 일하기 위해, 혹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를 '상대'로 찾는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삼위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자'를 '상대'로 찾으신다.
3.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가 이루려는 목적>은 '인간의 육'을 통해서 '그 영체'를 성장시켜 '삼위의 사랑의 상대체'로 완성시켜, 그렇게 '완성된 영'을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4.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생각하는 자를 택하여 전도자를 보내거나 직접 감동되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5.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목적을 같이 이룰 '최고의 상대'를 찾기 원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같이 이룰 '최고의 상대'를 찾으신다. 삼위일체는 신혼골수를 살피시어 모든 것을 아시니 정말 삼위를 사랑하면서 변치 않고 살 자인지 그 생각을 보시고, 성품도 보시고, 가문도 보시고, 그동안 살아온 것도 보신다.
7. <가문>을 보실 때는 '잘살고 잘 배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가 어떠한지, 어떤 줄기에서 태어났는지, 가문에 어떠한 의로운 공적이 있는지, 얼마나 의로운지에 초점을 맞추신다.
8. 삼위일체는 '성품, 성격, 가문, 그동안 살아온 것, 행실' 등을 다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면 '상대'로 택하시어, 전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
9. 삼위일체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기 위해 '전도자'를 쓰시는데, 그 전도자도 '합당한 자'를 '상대'로 택하여 쓰신다.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생각하고 있는 자, 정말 생명을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자, 성자와 주의 생각을 가진 자가 '전도자'로서 합당하니 그 사람을 '상대'로 삼고 '전도자'로 쓰신다.
10. 삼위일체는 그때그때 '그에 해당되는 상대'를 찾으시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상대'를 찾으신다. - 고로 '삼위일체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신부'로서 살고 싶어 하는 자들을 '사랑의 상대'로 택하여 쓰신다.
11.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되, 결혼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오직 성삼위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마지막 구원역사이며, <신부 시대>라서 '신부로서 사랑할 상대'를 찾으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사랑의 상대'를 찾아 쓰시며 역사를 펴신다.
12. 성약 섭리역사에 와서 '시대 신부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사는 자들 중에서도 삼위일체는 그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상대'를 찾으신다. '삼위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자'를 눈이 아프도록 쳐다보며 찾으신다.
13. 주의 뜻을 달아야 하늘의 운을 타고 '삼위의 상대'가 되어 <휴거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며 귀히 쓰인다.
14. 시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여 신령해야 삼위일체와 '생각'을 맞추며 '삼위의 상대'가 되어 자꾸 쓰여진다.

<2015년 4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한 사람이 손으로 땅을 파 내면, 1000마리의 개미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판다. 그러나 사람이 개미에게 대신 일을 해 준다고 해도, 개미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
2. 사람이 개미가 되기 전에는 개미와는 안 통하듯,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도와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과 말이 안 통한다. -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
3.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 시대는 '구약과 신약에서 펼쳐 온 뜻'을 마지막으로 복직하고 '창조 목적 사랑의 뜻'을 완성할 <성약 신부역사>이며, '재림과 휴거의 뜻'을 이룰 <재림 휴거 역사>다. 고로 땅에서 '삼위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가 '삼위의 상대'가 되고, '이 시대 성자의 육'이 되고, '이 시대 구원자'가 되어 <삼위일체의 뜻>을 이룬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생각이 맞는 상대'를 찾으신다.
5. 자기중심으로 하는 자는 '삼위의 상대'가 아니다. 고로 그런 자는 찾지도 않으시고, '상대'로 쓰지도 않으신다.
6. 처음에는 삼위일체와 생각이 맞으니 '상대'로 쓰시다가도, 가다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하니 그때는 다시 '삼위의 상대'가 되는 자를 찾아서 쓰신다.
7. 하늘의 사명을 받고도 자기중심으로 하는 자는 결국 안 쓰신다.
8.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이 없는 자라도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이 맞는 상대'가 되면, 순간 그 사람을 '상대'로 쓰고 행하신다. 이를 알고 어리다고, 사명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자기 감정과 육성으로 경히 대하지 말고, 그 말을 흘려듣지 말아라.
9.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성자와 주의 생각'에 맞추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성자는 그 사람이 직책이 높아도 '상대'로 안 쓰신다. 그때는 직책이 낮아도 '성자와 주와 생각이 같은 자'를 '상대'로 쓰신다.
10. <물>은 '같은 물'과 통하고, <불>은 '같은 불'과 통하고, <전파>는 '같은 전파'와 통한다. 이와 같이 성자도 주도 '같은 생각을 가진 자'와 통하여, 그를 '상대'로 삼아 쓰신다.
11. 지도자들은 자기 의견만 내세우며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아라. 그런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무시하고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자이며, 자기 생각을 최고로 생각하는 자이며, 자기 생각인데 성자와 주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자다.
12. 지도자는 항상 나이가 어려도, 직책이 낮거나 없어도 '성자와 생각이 맞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하나 되어서 행하여라.
13. 지도자라고 해서 항상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성자와 주의 생각과 같은 것이 아니다.
14. 자기를 중심하면 '성자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
15. 성자의 생각을 가진 자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몸으로 쓰여진다.
16. 올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섭리사에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신다. 곧 '생명의 역사'다.
17. <주를 깨닫고 하늘의 신부가 된 생명들>이 결국 '삼위일체의 영광'이 되고, '주의 영광'이 되고, '자기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한다.
18. 삼위일체는 '올해 생명의 축복'을 쏟아부으시기 위해 그에 합당한 '상대'를 찾으신다. - 곧 성자와 같은 마음을 가

진 자, 생명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상대’로 삼고, 그를 통해 <생명의 대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

19. <생명 관리>도, <계시>도, <말씀 증거, 주 증거>도 ‘성자와 생각이 맞는 자’를 ‘상대’로 택하여 쓰신다.

20. 지도자라도 그 일을 맡은 사명자라도 그때 성자와 주와 ‘생각’이 맞지 않으면, 성자도 주도 그와는 ‘같은 채널’이 아니라서 그를 통해서는 못 나타난다.

21. 지도자들은 누가 ‘삼위일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매일 눈여겨보고, 찾아내고, 그와 같이 행하여라.

22.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성자와 주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힘써라.

23. 전능자는 ‘전체’를 다 쓰시되, ‘삼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를 쓰신다. 어리거나, 사명이 없거나, 직책이 낮거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라도 그때 ‘삼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합당한 자’이니 ‘상대’로 삼고 쓰신다.

<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삼위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를 ‘상대’로 찾으신다. 그 상대를 찾으면 금방 통한다.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다.

2. 이 시대는 ‘사랑할 상대’를 찾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사랑할 자를 ‘삼위일체의 상대’로 삼고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신다.

3. 사탄도 ‘자기와 같은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자기처럼 행동하는 자’를 찾고 다닌다. 그 사람을 ‘상대’로 삼아 ‘사탄의 몸’으로 쓰기 위해서다.

4. 교만한 자, 형제를 무시하는 자, 하늘 앞에 섭섭함을 타는 자, 월권행위를 하는 자, 자기를 중시하는 자, 말과 행동의 폭력을 휘두르는 자, 혈기를 내고 화내는 자, 게으른 자, 음란물을 보고 세상의 썩는 문화를 즐기는 자,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술 담배를 하는 자들은 모두 삼위일체와 주께 쓰이지 못하고 ‘사탄의 상대’로 쓰인다.

5. 술은 병에 걸리게 하고, 상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하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고, 돌이키지 못할 실수를 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술기운에 살인까지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

6. 술 취하는 것이 방탕이며, 그것이 죄다.

7. 하나님은 ‘술 먹는 자’는 합당하게 보지 않으시고, 그를 ‘상대’로 찾지 않으신다.

8. 하나님은 ‘술 먹는 자들’은 ‘신부’로 삼지 않으신다.

9. 술은 독약과 같다. 독약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죽음을 당한 후에야 ‘이래서 독약을 먹지 말라고 했구나.’하고 깨달으려 하느냐.

10. <재림의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하게 생각하는 자를 ‘상대’로 택하시고, 그를 쓰고 <재림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11. <기성의 교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의 육과 영을 공중으로 휴거시켜 데리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리다. 삼위일체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 ‘재림과 휴거의 상대’가 안 되어 그들에게는 <재림과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12. 사람도, 신도 ‘같은 생각’을 가져야 같이 행한다.

13. 성약 섭리역사로 온 자들은 ‘재림의 상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 ‘휴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서 600선까지 도전해라.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어 금방 통한다.

15. 세상 사람들은 ‘상대의 생각’에 맞춰서 이성으로 꺾고, 사기를 치면서 꺾고, 거짓말하면서 꺾니 절대 조심해야 된다.

16. 사람이 생활할 때도 그때마다 ‘필요한 물건’을 집어서 쓰듯이, 삼위일체는 ‘전체’를 놓고서 그때마다 ‘삼위의 생각을 가진 합당한 자’를 심정이 일체 되었으니 ‘상대’로 삼고 쓰신다.

17. 각 사람은 <개성의 왕>이다. 고로 아무리 지도자라도 자기는 ‘자기가 갖춘 것’밖에 못 쓰인다. ‘전체’가 각각 개성의 빛을 발하며 삼위일체께 쓰임 받는다. 고로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직책이 낮거나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18. 각 사람이 모두 <개성의 왕>이니, 전체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누가 그때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어 쓰이는지 알고, 무지 속에 상극하지 말아라.

19. 현재 큰 사명을 맡은 자라도 처음에는 어린 자였다. 성자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람을 키우니, 성자와 구원자의 몸이 되어 시대를 깨우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큰 자가 되었다.

20. 어릴 때는 누가 큰사람이 될지 모른다. 귀히 여기고 가르치고 키워야 된다.

21. <개성의 왕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모른다.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시대 구원자와 같아야 되고, <사랑>이 일편단심이어야 된다.

22.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봐야 ‘삼위일체의 생각’에 맞춰서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어 ‘삼위일체의 일’을 한다.

23. 잠언, 설교, 강의를 머리에 채워라. 그러면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그의 몸이 되고 입술이 되어 외치게 된다.

24.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기도를 받고 결재하신다.

25. <삼위일체의 상대>가 되려면 삼위일체를 자주 찾고 대화하여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깊이 봄으로 삼위일체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 <말씀>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성자이고, 주이기 때문이다.

26. <삼위일체>가 핵이고 <주>가 핵이듯, <말씀>이 핵이다.

27. 말씀대로 살면 ‘삼위일체의 상대, 주의 상대’가 된다.

28. 이 시대는 ‘신부 시대’이고, ‘신부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신부’가 되고, ‘휴거 말씀’이 떨어졌으니 그 말씀대로 살면 ‘휴거’된다.

29. 가다 보면 ‘거짓’은 다 사라진다. 인원수가 많아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의 상대’가 안 되면 <구시대>로 끝난다.

30. 이 시대는 <신부 시대>이며 <아담 때 깨진 사랑의 뜻>을 이루며 복직하면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때이니 ‘사랑

의 상대'가 되어야 한다.

<2015년 4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성령 계시, 강의 활용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한 <자기 몸>을 가꾸고 멋있게 만들면, <자기 몸>에 눈이 떠져서 사랑하게 된다.
2. <자기 몸>을 '애인'으로 만들어라. 먹고 입고 자면서 생활만 하지 말고, <자기 몸>을 가꾸고 만들면서 책임을 지고 건강하게 다스려라.
3. <멋있게 가꾸고 만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히 쓰임 받아라.
4. <자기 몸>을 불의하게 쓰지 않도록 매일 다스려라.
5. <자기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귀히 쓰이게 하려면,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만들거다.
6. <자기 몸>과 <마음·정신·생각> 두 가지를 만들어 최고 귀하게 쓰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맡겨라. 인간은 매일 늙어 간다. 때 지나면 꽃이 지듯 진다. 19~23세가 되면 '꽃'이 진다. 24~30세가 되면 '열매'를 열면서 인생의 한 때가 간다. 30~40세가 되면 '맺은 열매'를 쓰는 기간이다. 이때 '열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된다. 40세부터는 인생 성공하여 표가 나야 된다.
7. 10대 때 자기 인생을 하늘 앞에 드려야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만들 수 있다. 20대 때 드리면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쓰셔야 하니 늦다. 하나님은 만들면서 쓰신다.
8. <지나간 인생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과거>로 되돌아가서 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쓸 수 있겠느냐. <어떻게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되돌려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현재 지금 사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다.
9. '신약인들'은 <성약시대>에 쓰여지지 못한다. '신약인들'은 이미 <신약시대>에 살면서 '신약시대의 일'을 했다. '성약인들'이 <성약시대>에 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들을 들어 쓰시며 '성약시대의 일'을 하신다.
10. 새벽에 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사는 자들을 뽑아서 쓰고, 점심에 할 일이 있으면 점심에 사는 자들을 뽑아서 쓰고, 햇그늘에 할 일이 있으면 해 그늘에 사는 자들을 뽑아서 쓰신다.
11. 어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사람'을 뽑아서 '이 시대의 일'을 한다고 하며 기다린다. 이는 마치 '이미 지나간 시간'을 쓴다고 하며 기다리는 격이고, '이미 서산으로 기운 해'를 기다리는 격이다. <그 날>은 한 번 가면 안 오듯 <세월>도 그러하다. <오늘>이 가면 내일에는 <새로운 날>이 오듯이, <신약시대>가 가면 <새 시대 성약시대>가 온다. 이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태어난 새 사람들 중'에서 '구원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필요한 사람들'도 뽑아서 쓰신다.
12.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의 생각대로 생각하며 기다리면 안 된다.
13. <사람>은 '한 가지'만 보고 행한다.
14. <하나님>은 절대 신이시라 '수백만 가지'를 다 보시고, 그것들에 다 지장 없도록 행하신다.
15.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에 태어나서 '구시대의 일'을 하다가 죽었다. 고로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새 시대의 일'을 한다. 새 시대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메시아'도 뽑아서 쓰고, '세계 왕들'도 뽑아서 쓰고, '선지자'도 뽑아서 쓰고, '사명자'들도 뽑아 쓰면서 새롭게 새 일을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그러하다. '그 해에 농사지은 곡식이나 과일'도 <그 해>에 거두어서 그 해에 먹고 끝난다. <새로운 해>에는 새롭게 농사를 지어

‘새로운 곡식과 과일’을 얻어서 그것을 먹는다.

16. 메시아도 그러하다.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태어난 자’를 뽑아서 행하셨다. <신약권 당세>에는 ‘신약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을 ‘메시아’로 뽑아, 예수님의 육이 죽을 때까지 그 육을 쓰시며 <신약>을 다스리셨고, 그 후에는 <신약권 한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영’을 쓰시며 다스리셨다. 신약에 예언한 새 역사에는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을 뽑아서 행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본 법> 모르고, “구시대가 새 시대로 이어진다. 옛날에 쓰던 사명자들이 이 시대에 다시 와서 행한다.” 한다. <옛 시대>에 태어나 ‘옛 시대 일’을 하고 죽은 자는 1000년이 지나도 다시 안 온다. <새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이 시대 사명자’를 뽑아서 쓰시며 <새 역사>를 펴고 가신다. <이 시대 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자들의 육신’이 살아 돌아와서 행할 자는 단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시대 일’을 시키지도 않으신다. <새 시대의 일>은 100% ‘이 시대 사람들’이 한다. <옛 시대>는 ‘헌 가족 부대’이고, <새 시대>는 ‘새 가족 부대’다. 고로 ‘헌 가족 부대’를 꿰매서 ‘새 가족 부대’와 함께 쓰려고 하지 말아라. <구약>은 옛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며, <신약>은 옛 것이고 <성약>은 새 것이다.

17. 지금 이 시대는 <성약시대>다. 재림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때다. 성자는 이미 ‘이 시대 구원자’를 뽑아 ‘그 육신’을 쓰고 오셔서 <재림 역사>를 하시고, <성자의 새 할 일인 휴거 역사>까지 다 하시고 떠나셨다. 하나님도 성자도 ‘때’가 되면 떠나신다. 때가 됐는데, 때를 초월하여 행할 자가 있느냐. 한 명도 없다. 가령 때가 되어 해가 졌는데, 지구 세상 70억 명 중에서 해를 볼 자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같이 ‘때’가 되면 끝난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아는 자’만 쓰신다. 이 시대에도 ‘아는 자’를 세워 인생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며 성경을 다 이루시고, 이 시대 성경의 역사를 다 이루고 가신다.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전혀 모르고 끝난다. <아는 자>는 10대 때부터 알고 된다.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성령 계시, 설교용

1. <미완성의 삶>을 사는 자는 계속 ‘미완성 단계’만 보여 준다.
2. <완전>해야 ‘완전한 것’을 보여 준다.
3. 눈이 ‘미완성의 사물’을 보면 언제나 ‘미완성 단계’만 보게 된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자기 육>이 미완성 단계이면, ‘영적’으로도 미완성 단계만 보인다. 일점일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보인다.
4. <육의 행실> 그대로 ‘영적’으로 보인다.
5. 둘은 둘로만 보이고, 셋은 셋으로만 보이듯, 영의 세계에서도 ‘육이 행한 그대로’만 보인다.
6. <완전한 자>에게만 영의 세계에서도 ‘완전한 것’이 보이고, <흐리멍덩한 자>에게는 영의 세계에서도 ‘흐리멍덩한 것’이 보인다.
7. 이겨야 이긴 자에 속한다.
8. <신앙의 최고 선>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9. <육>이 듣고 행해야 <혼과 영>도 좋아진다.
10. <육>은 ‘나무’와 같고, <혼>은 ‘꽃’과 같고, <영>은 ‘열매’와 같다. ‘나무’가 잘 성장해야 ‘꽃’도 잘 피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린다. 이와 같이 ‘육’이 잘 성장해야 ‘혼과 영’도 온전하게 성장하고 만들어진다.
11. <육>이 사망에서 나와야 <영>도 사망에서 나온다.
12. 육과 혼과 영은 일체다. <육>으로 인해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13. <육신>은 ‘먹는 음식’과 같다고 생각하고, <혼과 영>은 ‘육신’과 같다고 생각해라. ‘먹는 음식’에 따라서 ‘육의 몸’이 영향을 받아서 살이 찌고 건강해지듯이, ‘육의 행실’에 따라서 ‘혼과 영’이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다.
 14. <육의 몸>이 그리도 중요하다. <육신의 마음, 정신, 생각, 행실>이 그리도 중요하다. <육>이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혼>이 변화되어,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된다. <육>을 통하지 않고 <영혼>만으로는 천국에 못 간다.
 15. <육>이 ‘천국 생활’을 해야 <영>도 ‘천국’에 가고, <육>이 ‘세상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으로 끝나서 <영>도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16. <육>이 잠을 잘 때 <혼>이 행하는데, 그 역시 <육>이 낮에 행한 것을 ‘자본’으로 삼고 행한다. <육>이 행한 것이 없으면, <혼> 역시 혼의 세계에서 수준 낮게 행하고 다닌다.
 17. <육>이 기도하여 신령하고, 말씀을 듣고, 할 일을 다 하고, 정직하게 완전히 행하면, <혼>도 혼의 세계에서 그 차원에서 행한다.
 18. 이 세상의 사물대로만 눈으로 보이듯, <혼>도 혼의 세계에서 ‘육신의 행위’대로만 보이고 더는 안 보인다.
 19. <육신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성장시켜 완전하게 하고, <육신의 행실>을 성장시켜 완전하게 해라. 그래야 <혼>도 <영>도 완전하게 성장되고 변화되어 ‘완전한 세계인 천국’을 상속받고 ‘완전한 영혼의 삶’을 살아간다.
- <2015년 5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성령 계시, 설교용
20. <육과 영의 성공>은 ‘육의 마음·정신·생각’과 ‘육의 행실’에 있다. <육>이 하나님과 성자의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육과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21. <태아의 생명>은 ‘모태’에 의해 좌우된다. <육의 마음·정신·생각, 행실>은 ‘모태’와 같고, <혼과 영>은 ‘태아’와 같다. <혼과 영>은 <육의 마음·정신·생각, 행실>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22. 항상 <육>에게 일이 생겨서 <혼과 영>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23. <혼과 영>에게 문제가 있어서 <육>이 영향을 받고 문제가 생기기보다, <육>에게 문제가 있으니 <혼과 영>도 문제가 생긴다.
 24. <육의 마음·정신·생각>을 ‘말씀’으로 잡고, ‘기도’하여 신령하게 행해라. 그래야 <혼과 영>도 육과 같이 변화되고 행한다.
 25. <육>이 사탄에게 잡히면 <혼과 영>도 그 주관권에 들어간다.
 26. <육>이 못 하면, <혼과 영>도 못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7. <육>이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도록 매일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대로 행해라. ‘죄’를 빨래 쌓아 놓듯, 쓰레기 쌓아 놓듯 하지 말고, 매일 소각하여 없애라.
 28. <육신>이 땅에서 삼위일체의 주관권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혼>도 ‘천국’에 못 간다.
 29. <육 해방, 자유>는 곧 <영 해방, 자유>다.

30. <육>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행하고, ‘삼위일체가 보낸 구원자’를 절대 믿고 행해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31. <육>이 구원받아야 <영>도 구원받는다.

32. 먼저 <육>이 땅에서 휴거되어 ‘휴거의 삶’을 살아야 <영>도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산다.

33. <육과 영의 연관성>은 ‘부부 일체’와도 비교가 안 된다. 부부는 같이 살다가 이혼해도 각각 살아간다. 그러나 <육과 영>은 ‘나무와 나무뿌리’ 같아서 떨어지면 죽는다.

34.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온전한 선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육>을 만드시고, <육>이 ‘온전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영>이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게 하셨다.

35. <육>은 ‘세상 유혹’을 참지 못해 먹고 마시고 ‘이성’을 취하며 육적으로 각종 영광을 누리며 살고, <영>은 기도하고 열심히 하여 잘되고 구원받게 해 놓지 않으셨다. 속이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

36. <육>이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온전하게 함으로 구원받아야, 그 <영>도 육을 따라서 그대로 변화되고 ‘선한 영’으로 형성되어 ‘천국에 속한 영’이 된다.

37. <육>은 육대로 하고 <영>은 영대로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육 따로, 영 따로’의 신앙을 하는 자들은 목적지에 가 보면, <영>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형성되어 그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 가게 된다.

38. <육>이 ‘이 시대 구원자’를 믿고 ‘온전한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삼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고, 매일 과일이 커서 완성되듯 그 형체가 온전해진다. 과일이 완전히 익으면 추수하듯, <영>도 ‘완전한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면 성자께서 추수해 가신다.

39.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교회에 오면, ‘세상에서 행한 것’을 실컷 회개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회개된 것이 아니다. 용서받아야 된다. 자기 의지, 심리, 생각으로 ‘용서받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 <육신>이 온전히 살아야 <영>도 하늘나라 형체를 이루며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형성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40. <육의 마음과 행실>에 의해 <영>이 형체를 형성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 간다.

41. 세상 물건도 완전하게 만든 것만 작동된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42. 자기 육신의 마음과 정신과 행실을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거다.

<2015년 5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특히 열 살에서 스무 살이 되기까지 잘 배우고 행하며 성장하기에 따라서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앞날이 좌우된다.

2. 사람이 성공하려면 어릴 때 투자하고, 가르치고, 키우고, 관리하고, 위대한 말씀을 주며 행하게 해 줘야 된다. 어릴 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전적으로 몰두해서 행하기 때문이다.

3. 어릴 때는 투자하고 관리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마치 건물을 짓고 개발하듯이 ‘뇌, 마음, 생각, 행실’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되어 간다.

4. 성자의 말씀 중에서 ‘선생이 특히 생명시하고 행한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선생이 쓴 4만 개 이상의 잠언들 중에

서 ‘미스코리아처럼 뽑힌 말씀’이다. 선생은 이 잠언을 ‘기준’으로 삼고 행했다. → 사람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 바로 이 말씀이다.

5. 음식도, 물건도, 집도, 건물도 <목적>을 두고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고, 만드는 대로 쓰여진다.

6. 나무로 ‘책상 만들기’에 목적을 두고 만드니, ‘책상’으로 만들어지고 ‘책상’으로 쓰여진다. ‘볼펜’으로 목적을 두고 만드니 ‘볼펜’이 되어 ‘볼펜’으로 쓰인다.

7. 사람도 자기를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고 만드는 대로 쓰여진다.

8. 자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9.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려면, ‘하나님과 성자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만들기’다.

10. TV나 보고, 음란물이나 보고, 소설이나 만화나 보고, 놀기나 하고, 세상 사랑이나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세상 썩은 문화나 보고 듣고 접하면 <뇌>가 ‘그와 같은 생각’으로 형성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몸>도 그와 같이 행하게 되고, <생각>도 <행실>도 그렇게 굳어 버리고, 결국 자기가 만든 대로 인생이 형성된다.

11. <육>도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 굳어지고, <영>도 ‘육의 생각과 행위’대로 똑같이 형성된다.

12. 자기 육신이 행한 그대로 <자기 혼>이 형성되어 있고, 자기 육신이 행한 그대로 <자기 혼>이 활동하고 있다.

13.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으로 자기를 위대하게 만들기에 도전 해라. 그래야 육도 영도 지상에서 최고로 큰 인생이 된다.

14.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 속에 ‘자기 육과 영을 위대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 들어 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 자기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게 된다.

15. 나무가 가만히 있는데 ‘책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무를 가지고 ‘목적’을 두고 만들어야 만들어진다.

16. 사람도 그러하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행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17. 자기를 만드는 대로 되고, 만든 대로 쓰여진다. 자기를 만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만든 대로 쓰신다.

18. 하나님과 성자는 구원자를 통해 ‘말씀의 자료’를 주신다. 그 ‘말씀 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행하여 만드는 것’이다.

19. 구원자라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다. 심었으니, 그만큼 창대하게 거둔 것이다. 행하니, 그만큼 얻은 것이다. <섭리역사>도 심고 거두었고, 행하여 얻었다.

20. 생활 속에서 ‘전능자의 말씀’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행해야 자기를 위대하게 만든다.

21. <자기를 만드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매순간 숨을 쉬듯, 밥을 먹듯 ‘생활화’해라.

<2015년 5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말은 바 책임을 다하며 필사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는 자기를 더욱 온전히 만들게 된다. 더 나아가 <자기>를 만든 것처럼 <남>도 만들어 준다.

2. 동물도 새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야수를 보고 좋아서 달려간다. 이와 같이 신앙이 어린 아이들도 잘 모르니 사탄과 악한 자들을 보고 좋아서 달려가고, 박서는 안 될 TV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을 좋아서 보고, 세상의 썩은 문화를 보고 좋아서 달려간다. 몰라서 그러니, 꼭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관리해 주어라.
3. 먼저 자기를 만들고 깨닫고 아는 자들이 애간장 태우며 어린 생명들을 자기 생명같이 관리해 주게 된다.
4. 애간장 태우며 자기 생명같이 어린 생명을 관리하는 자는, 성장한 자로서 어느 정도 ‘자기를 만든 자’라 할 수 있다.
5. 어린 생명은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점점 성장하고, 그로 인해 점점 희망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다.
6. 생명을 쫓 관리하다가도 중단하면, 그동안 관리한 것이 모두 허사가 되어 허무하게 끝난다. 고로 <관리>는 ‘끝까지’다. 그래야 그동안 애쓰며 관리한 것이 보람이 있고, 관리한 것의 결실을 보게 된다. - 이것을 잊으면 죽는다.
7. <자기를 만든 자>가 생명들을 관리하고 살린다.
8. 먼저 ‘자기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를 중심으로 자기를 만들기다. 그리고 성자와 주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행하기다.
9. 먼저 주를 중심으로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야 <상대>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다.
10. 자기를 다 만든 자는 <자기>가 ‘하나의 만드는 틀’이 된다. 고로 그 틀을 가지고 <상대>도 가르치고 인도하며 만들어 줄 수 있다.
11. 너를 만들 자료가 무엇이나? 생명의 말씀이다.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새벽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라.
12. 어린 소년 소녀들을 만들어서 귀히 쓰고 같이 살려면, <자기>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주면서 <목적>을 두고 만들기다.
13. <엄마>가 아기를 기르고 키우려면 ‘아기’가 되어 줘야 된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엄마가 아기처럼 되어 주면서 만들어 주는 것이다. - 모두 이렇게 해라.
14. 자기를 최고 이상적으로 만드는 시기는 20세까지다. 이때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인생 실패하고, 앞날에 고생한다.
15. <자기>를 만들 때는 자신의 모습을 혼자 다 못 보니 기도하면서 만들고, 말씀을 귀히 들으면서 만들고, 주의 뜻을 달고 주와 함께 하면서 만들고, 그때마다 합당한 사명자들과 함께 만드는 것이다.
16. 자기를 만들어서 귀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그 기쁨과 행복은 지구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다.
17. 시대 구원자도 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상대’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생들의 육과 영을 구원해 주고, 신부로서 휴거되어 <영원한 사랑의 세계인 천국 황금성>에서 살도록 인도하며 가르쳐 주는 ‘성자의 몸’이 되었다.
18. <휴거>같이 큰 영광은 이 세상에 없다.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다 합쳐도 ‘어린아이 한 사람이 휴거된 영광’만도 못하다.
19. 물건도, 음식도, 집도 손으로 만들어야 만들어지듯이, 인생은 몸으로 행해야 만들어진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쓰기에 합당하게 절대 <자기>를 만들어라.

21. 지도자가 인도하며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말씀’을 자료로 삼고 의지와 목적과 집념을 가지고 먼저 ‘행실의 시동’을 걸어야 지도자도 함께 만들어 주고, 성령님도 성자도 선생도 함께 만들어 주니 빨리 만들어진다.

22. 어린이도 청소년도 어서 자기를 만들고, 어른들도 ‘어린이’가 되어 어서 자기를 만들어라. 나이 먹었다고 뒷짐 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린이’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23. <자기 자신>은 ‘그릇’과 같다. 자기라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원하는 축복을 주고, 밭에 숨긴 보화를 주신다.

24. 성자 승천 후 성령이 어머니로서 자세하고 세밀히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때 천모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두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고 행해라.

<2015년 5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제시간에 행하는 자는 평탄한 길을 가는 자다. 고로 편히 간다.

2. 제시간을 놓치고 후에 행하는 자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자다. 고로 그만큼 힘들게 더디 간다.

3. 할 일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기 힘들어진다. 제시간에 행하는 것이 최고로 쉬운 방법이며, 형통하는 길이다.

4. 그 어떤 일이든지 하늘의 행사든지 ‘제시간’에 맞춰 참여하고 행하기다. 제시간에 안 하면, 결국 ‘자기만 후회’다.

5. <3.16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은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뿐인 날이었다. 이때 제시간에 맞추어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후회를 남기게 되었다.

6. <영>은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 갔어도, 혹은 <영>이 휴거되는 과정 중이라도 <육>이 모르면 행하지 못한다. <육>도 ‘휴거의 기쁨’을 알고 감사하며 ‘휴거의 삶’을 살아야 곤고함을 면한다.

7. 마음과 생각이 무기력한 자는 큰소리를 쳐도 모른다.

8. <3.16 성자 승천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임금의 혼인 잔치>에 안 간 것이 된다. 어떤 자는 자기 삶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가 못 갔고, 어떤 자는 몰라서 못 갔고, 어떤 자는 관심이 없어서 안 갔고, 어떤 자는 낙심하니 못 갔고, 어떤 자는 몰랐지만 참여하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 갔고, 어떤 자는 몰랐지만 참여하다가 알고 감사하며 기뻐했고, 어떤 자는 알고 기뻐하며 만족하게 영광을 돌렸다.

9. 마음과 생각이 무기력해진 자는 말씀을 들어도 무기력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10. <지식으로 아는 것>과 <깨달는 것>은 다르다. 깨달아야 된다.

11. <3.16 성자 승천일, 휴거 날>도 지식으로는 알았다. 그러나 깨달지는 못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깨달았다면, 그날을 그리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12. 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3.16>을 기억하고 상기해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말 ‘제시간’에 행하기다. 그날에 못 한 것을 생각하며 열을 내라.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다시는 제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13. 자기를 만든 기본의 터전 위에서 행해야 그때부터 ‘자기 능력’이 시작된다.

14. 사람이고 물건이고 안 만들면,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 만드는 만큼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한다.
15. 지금 이 좋은 때에 <한때>가 순간 남았다. 이때 못 하는 자는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행할 자료인 말씀이 있고, 시간도 있고, 자기에게 힘도 있고, 구원자가 살아 있어 지휘하고 다스리니, 자기가 하면 다 할 수 있다.
16. 자기가 안 하면, 하나님과 성자는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날마다 ‘제2의 후자’를 불러들여 그들을 데리고 행하신다.
17. 사명을 주고 기회를 줘어도 진정으로 하지 않고 성의 없이 하면, 성령이 다른 자를 감동시켜 대신 하게 하신다.
18. 지금 이때는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사명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섭리 연륜이 오래됐든지 안 됐든지 <구원자와 함께하는 당세>, <남은 좋은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때를 놓치면 정말 안 된다. 제때, 제시간에 행하거다.
19. 모두 휴거되어 <영원한 황금성>을 차지하여 성삼위께 영원히 사랑받으며 살 기회가 네 앞에 있다. 시대 사도가 되고 성령의 상대체가 되어 외칠 기회가 네 앞에 있다. - 자기를 만들어서 행한 자가 주인공이 된다.
20. 하나님이라도, 성령님이라도, 성자라도, 구원자라도 행할 자료인 <말씀>을 주지, 대신 행해 주지는 않는다. 아무리 밥을 해 줘도 먹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듯, 자기가 말씀을 듣고 밥 먹듯이 행하여 은혜의 살을 찌우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얻는 것이다.
21. <말씀 자료>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몸’으로, ‘자기 힘’으로 행하여 만들고 얻는 것이다.
22. 저마다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해 주고, 잠언도 읽어 주며 깨닫게 해라.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책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기도 하면서 행해야 된다.
23. 어서 시작해라. 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할 일은 ‘시작’이다.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24. 시작하면,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다. 시작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25.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자들은 뇌가 굳어서 마음은 먹는데 ‘시작’을 못 한다.
26. <시작>을 못 하는 자들은 자기를 흥분시키고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는 신경이 마비되어 있고 죽어 있는 자다.
27. 선생도 10대 때부터 가장 먼저 <새 시대>를 깨닫고 행하기 시작했다. 내가 먼저 시작하니 내 인물은 시골 촌사람이고, 세상 학문도 안 배웠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합당한 자, 성자의 육’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36년 동안 성자와 함께 <성약 섭리역사>를 펴 왔고, 그 터전 위에 <휴거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28. 선생은 시작을 빨리했기에 <성자의 육>이 되어 성공했고, <새 역사 신부 시대>로 먼저 살아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았다.
29. <월명동 성지 땅>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개발을 시작했기에 오늘날 ‘성지 땅의 현실’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귀히 쓰게 되었다. 1000년 동안 귀히 쓰인다.
30. 하면, ‘창조’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시작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루시엘이 인간 창조를 막았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원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때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아담과 하와는 '핵심인 사랑의 뜻'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시작한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다. 정녕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32. 하나님은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새롭게 시작하시어 <구약>을 거치고 <신약>을 거쳐 그 터전 위에 <성약 역사>를 세우시고, 결국 성약역사 당세 때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33. 이 시대에 성자의 몸이 된 구원자도 시작했으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다.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또 시작했다. 결국 <창조 목적을 이루는 휴거 역사>를 진행하여 이 시대에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을 휴거시켜 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천국 황금성>에 가게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은 기간도 계속 시작하고 행하여 <휴거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34. 이 세상에서 최고로 크게 일한 자는 <창조 목적을 이룬 자>, 곧 <휴거된 자>다. 휴거 이후, 이제 7배나 더 강해졌으니 저마다 섭리사에서 시작할 것들을 시작해라.

35. 시작해야 보화를 발견하고, 시작해야 자기 것이 남는다.

36. 시작할 때마다 '어려운 일'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결심하고 해야 된다.

37. 시작해도 처음에는 미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중에는 정녕코 창대하게 된다.

38. 시작을 못 하는 자들은 시작을 잘하는 자를 보면서 감동받고, 그들을 앞세워서 해라.

39. <시작의 책임>을 얼마나 '제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좌우된다.

40. 시작을 제때 안 하고 늦게 하면, 음식을 제때 먹지 않는 것과 같아서 맛이 안 나고, 끝장을 못 내고 하다가 만다.

41. 아이스크림도 제때 먹어야 시원하지, 제때가 지나서 녹으면 먹다가 만다. 시원할 때 먹으면, 끝까지 먹고 끝장을 낸다.

42. 만사의 모든 것이 제때 시작하지 않으면 끝장을 못 내고 끝나고, 제때 시작하면 끝장을 내고 만다.

43. 성령께서 제때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시작하도록 감동을 주시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린아이같이 시작해라.

44. 새벽기도, 말씀, 전도, 관리, 강의, 자기 사명의 일 등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서 시작해라.

45. 시작하면 바로 얻는다.

46. <그동안 못 한 것들>을 어서 시작해라. 제때 못 맞고 아쉽게 보낸 <3.16>을 늘 상기하며, 지난날 제때 못 하여 평생 한이 되고 후회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남은 것들은 어서 시작하여 얻어라.

<2015년 5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47. 시작해야 끝을 보게 된다.

48.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다.

49. <3.16>은 ‘알파’이며 ‘오메가’이다.

50. <3.16>에 ‘시대 구원자’가 태어났기에 이날은 ‘알파’다. 그때 성자가 그 몸을 쓰고 다시 오셔서 <새 시대 섭리역사>를 시작하셨고, <새 시대 말씀>도 시작되었다.

51. <3.16>에 성자는 휴거 역사를 이루시고 휴거된 신부의 영들과 함께 승천하셨다. 고로 이날은 ‘오메가’가 되었다.

52. <3.16>에 성경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이루었다.

53. <3.16>에 성자는 ‘승천’하셨고 신부들은 ‘휴거’되었다.

5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이다.

55. 삼위일체는 ‘시작하는 자’에게 뜻을 주어 육도 영도 휴거되어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56. 시작해야, 끝인 ‘목적’을 이루게 된다.

57. <3.16>은 ‘이 시대 구원자가 태어난 날’로서 ‘성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이다. 곧 ‘시작한 날’이다. / 그리고 성자는 그 몸을 쓰고 <재림과 휴거의 역사>를 펴 오시다가 <3.16>을 ‘끝나는 날’로 정하시고,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

58. <성자의 육으로 쓰는 이 시대 구원자가 태어난 날>과 <성자가 승천하신 날, 휴거 날> 이 두 날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큰 날이다. 최고 큰 날인 두 날이 ‘한날’로 합쳐졌다. 두 겹 줄은 강하다. 고로 <3.16>은 더 큰 날이 되었다.

59. 이제 <뒷마당 휴거 잔치>가 남아 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휴거 잔치>는 못 하고, 그냥 <성약역사 주관권의 신부>만 된다.

60. 시대 구원자가 살아 있는 때가 <최고의 황금기>이다. 이때 어서 저마다 ‘시작’해라.

61. <시작>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려 놓으면, 싹이 나서 햇볕과 비와 바람으로 곡식이 크다. 그러면 잡초와 가라지만 뽑아 주고 퇴비만 주면 된다. 그러다 보면 목적을 이루고 끝장을 보는 ‘추수 때’를 맞는다. - <끝>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불어도 <시작>해야 된다.

62. <새 시대 섭리역사>는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 <저 옛 시대 기성>은 ‘새 시대’를 시작할 줄 모르고 있다. <새 시대 역사>가 일어나려면, ‘시대 구원자’를 따르고 ‘새 시대 말씀’을 들어야 된다. 2000년 전의 옛 시대 신약말씀으로는 개인도 역사도 ‘구(舊)시대 역사’밖에 할 수 없다.

63. <새 역사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라. <휴거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라. 깨달아야 그 정도로 살지 않는다. 깨닫고 저마다 ‘이때 자기가 할 일’을 빨리 시작해라. 네 영이 네 육신을 재촉하고 있다.

64. 만사의 모든 일도, 휴거도, 인생이 잘되는 것도, 소원 성취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신앙의 일도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듯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을 해야 <끝>인 ‘목적’을 이룬다.

65. 네 마음 밭에 ‘온전한 것’을 뿌려라. ‘온전한 생각’을 뿌려라.

66. <온전한 생각>은 ‘온전한 말씀’으로부터 온다. 어서 하나님과 성자의 위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네 마음 밭에 ‘온전한 것’을 뿌리고, 그로 인해 ‘온전한 행실’을 해라. 뿌린 대로 거둔다.

67. <자기가 좋아하는 육적인 것들>을 해 봤자 결국 남는 것은 ‘늪은 몸’과 ‘시체’밖에 없다. <영원한 것>을 뿌리고 남겨라.

68. 하나라도 시작해라. 시작해야 ‘끝’을 보고 ‘목적’을 이룬다.

<2015년 5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서두르면 서서 가고, 안일하면 앉아서 간다.

2. 별것도 아닌데 가리면,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본다.

3. 큰 것도 개방하면 보통으로 본다.

4.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세 명’에게서 들으면, 각각 다르다.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5. 솥이 열을 받으면, 그 속에 넣은 물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때 음식 재료를 집어넣으면 음식이 익는다. <사람의 마음>도 ‘열’을 받고 ‘불’을 받아야 행하는 대로 화끈하게 해진다. 모두 ‘선(善)의 열’을 받아야 된다.

6. 성공하고자 해야 많이 행한다.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결심하고 행하면, 크게 되든지 작게 되든지 되기는 한다. 그런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간절히 희망했던 때와는 마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성공해도 오래 못 가는 자들이 많다.
- 얻은 후에도 마음 변하지 말고, 더 차원 높여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살아라.

7. 인생 일생 성공하고도 늙어서 끝나니, 과거가 꿈결 같다. 안 죽고 천 년, 만 년 오래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 욕>을 가지고 ‘욕’만 위해 살지 말고 ‘네 영’을 위해서도 살아라. 그러면 욕신이 끝난 후에 ‘영의 삶’이 연속된다. 영의 세계는 전능자 하나님이 짝 잡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8. 20대가 넘으면 시작하기에 늦다. 자기를 만들기에 늦다. 10대 중반에는 ‘인생 갈 길’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을 아신다.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을 매고 못 끊으며 인생을 썩힌다.

9. 지구 세상 70억의 사람들은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기도 하면서 각종 각색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찾은 자’를 만나 살아야 ‘영원한 문제’가 해결된다.

10. <대상>이 있으면 ‘기쁜 잔칫집’이 되고, <대상>이 없으면 ‘슬픈 初喪집’이 된다.

11. <문제>만 있으면 ‘슬픈 초상집’이 되고, 대상인 <답>이 있으면 ‘기쁜 잔칫집’이 된다.

12. <하나님> 앞에 대상은 ‘성령님’이고, <성자> 앞에 대상은 ‘분체’다.

13. <삼위일체> 앞에 대상은 ‘사랑제 신부들’이다.

14. 삼위일체 앞에 ‘신부로 변화된 사랑제’들이 있어야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날마다 기쁨의 잔치를 한다.

15. <나무>가 있고, 대상인 <열매>가 있어야 잔치한다.

16.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의 대상인 <실체>가 있어야 잔치한다.

17. <영>이 있고, 그 대상인 <육>이 영과 일체 되어 행해야 날마다 기뻐 잔치한다.
18. <혼>이 있고, 그 대상인 <육>이 일체 되어 있으면 잔치한다.
19. 신과 함께 100% 행한 자는 ‘신’이다.
20. 100% 신을 사랑한 자는 ‘신’이다.
21. 전능자 삼위일체는 ‘신’이시다. 그와 일체 된 자는 ‘신’이다.
22. 자기 생각과 주관을 버려야 그 속에 ‘주’가 들어가서 운전해 준다. 그리함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
2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감동이 돼야 시동이 걸려서 그 사람을 향해 할 일을 행하신다. 신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라.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모르거나, 알아도 관념과 지식으로만 알면, ‘알맹이 없는 곡식’과 같다.
2. <3.16>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뿐인 귀한 날이었다. 그러나 성자에게 해당되는 ‘승천’만 생각했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휴거’를 생각하지 못하여 그날을 제대로 맞지 못하고 보냈다. 고로 평생의 아쉬움으로 남았고, 한이 되었다.
3. 이와 같이 ‘성자의 육’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한이 된다.
4. 사람이 알고 깨달으면 행한다. <3.16>이 ‘휴거 날’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제대로 맞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 구원자’도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맞는다. 그러니 모두 복음을 전하여 ‘시대 구원자’를 알려라.
5. 성경에 ‘그 날과 그 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 날이 ‘휴거 날’인지 모르는 것이 뜻이었겠느냐. 아니다. 모르는 것이 뜻이었으면 ‘그 날과 그 시간’도 안 가르쳐 주었고, 영적으로 아무에게도 계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 신부들에게는 ‘그 날과 그 때’를 알려, 제대로 맞게 하는 것이 뜻이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한 것이다.
6. <휴거 날>의 원자폭탄 같은 핵심 한마디는 ‘오늘이 휴거 날이다!’였다. ‘핵심’을 모르니 ‘전체’를 몰랐던 것이다.
7. 모르는 것같이 억울한 일은 없다. 몰라서 제대로 못 하고, 알아도 관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고 행하면 평생 한이 된다.
8. 저 기성을 보아라. 주가 다시 오시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관념적으로 문자대로만 믿으니, 다시 오신 주를 맞지 못하여 평생 한이 되었다.
9. <시대 구원자>를 맞고 <성자>를 맞고 <시대 휴거>를 알고 사니 얼마나 좋은지, 매일 ‘그 가치’를 알고 살아라.
10. ‘육’은 ‘영’이 휴거됐는지 몰라도, 그동안 자기가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영’은 휴거된다. 또 아직 휴거되지 못했다면 부지런히 행하여 남은 휴거를 이루어라. 그러나 한이 되는 것이 있으니, ‘육’이 알지 못하여 <휴거 날>을 제대로 맞지 못한 것이다.
11.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서, 성경을 이루려고 섭리인들이 제대로 모르고 끝난 것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성자도, 시대 구원자도, 섭리의 신부들도 <휴거 날>에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한 한을 못 푼다.

12. 증거의 성령이 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 그 증거를 듣고, 자기가 무엇을 못 했는지 깨닫고 회개하여 ‘못 한 것’을 행하여 한을 풀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라.

13. 전능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날 <3.16>에 우리가 행한 것이 ‘성자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3.16>을 제대로 맞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를 대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자기 합리화시키며 자의로 풀지 말아라. 자기가 못 해서 힘들더라도, 자기가 죄인이 되더라도 성경을 바로 풀고 깨달아라. 그래야 ‘육이 못 한 것’을 회개하고 깨끗이 되어 휴거 300선에 오르고, 휴거됐다면 다음 차원인 400, 500, 600선에 오른다.

14. ‘못 한 것’을 숨기면 안 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다 밝혀야 온전하게 된다. 고로 성령님은 일점일획도 그냥은 안 지나가고 다 밝히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시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하신다.

15. 못 하고 그냥 지나가면 억울하다. 한이 된다. 고로 <구약>에서 못 한 것은 <신약>에서 1차로 했고, <신약>에서 못 해서 억울한 것은 <성약>에서 완성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한을 풀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도 풀어 주셨다. 이와 같이 <3.16 휴거 날> 못 한 것은 <부활절>에 다시 기회를 주어 괴로운 마음도 해결해 주고 한도 풀어 주었다.

16. 못 한 것을 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원한을 풀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불이 안 붙는다.

17. ‘성자와 주의 사랑의 한’을 풀어 주고, ‘삼위일체가 각종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꼭 해 주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를 펴시고, 우리 각 사람의 원한도 풀어 주신다.

18. 성자가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왜 못 했는지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것이다. 못 했으면, 이유나 핑계를 대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제대로 행하여 한을 풀어라.

19. <휴거 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며 안 온 자들은 거의 다 자기 합리화였고, 무지였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20. 사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니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다.

21. 신부라면, ‘사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말아라. 신부라면, ‘신랑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어라.

22.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평생 한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며 외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듯이, 신부인 너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자에게 못 한 것의 한’을 풀어라.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3.16 성자 승천 날, 휴거 날>은 ‘휴거 날’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못 하여 제대로 맞지 못했다. 성령님은 <부활절>을 통해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 이때 인식을 제대로 하고 행한 자들은 ‘휴거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2. 휴거 300선이 안 된 영들은 ‘드레스’는 입었지만 ‘신부의 왕관’을 못 썼기에 <3.16 휴거 날>에 천국까지 따라가서 <하늘 혼인 잔치>만 보고 다시 지상에 돌아왔다. 그러다가 <부활절 성령집회> 때 제대로 인식하고 행한 자들은 휴거되어 ‘신부의 왕관’을 쓰고 성자를 따라갔다.

3. <휴거된 신부>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100% ‘신부의 왕관’까지 쓴다. ‘드레스’를 입고 ‘일반 왕관’만 써도 안 된다. 그것은 ‘자기 공적의 왕관’이다. ‘신부로 인정하는 왕관’이 따로 있다. 꿈에서 자기 혼이나 영을 봐도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4. 앞으로 <3.16 휴거 날>과 같은 때가 100% 또 온다. 성령이 오셔서 지난날 못 한 것을 낱알이 말씀하시니, 성령의

증거를 잘 듣고 지난날 못 한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회복하여 앞으로는 정말 잘해야 된다.

5. <3.16>을 제대로 못 맞아 한이 되었지만, 성자가 남겨 놓고 간 ‘성자의 육’이 있으니 1차 <부활절> 때 기회를 주시어 복직할 수 있게 하시고 한을 풀게 하셨다.

6. 성자는 <휴거>로 다시는 지상에 안 오신다. 특별한 날 영광 받기 위해서만 잠깐 오신다. 이제는 남은 기간 <남은 휴거>를 이루게 할 자는 ‘성자의 육’밖에 없다.

7. 이제 ‘성자의 육’을 평생 ‘성자’같이 대해야 된다. 예수님 때도 성자가 떠나시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성자로 보고 절대시켰다.

8. ‘성자의 육’에게 하면, 그것이 즉시 ‘성자’께로 전달된다. ‘왕’에게 최고로 큰 은혜를 입었는데 왕이 떠나는 날 못 가서 제대로 배움을 못 했으면, 왕이 남기고 간 ‘왕비’에게 해 주면 된다. ‘왕비’를 통해 ‘왕’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9. 이제 ‘성자’가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이제는 말씀을 생명시하고 자기 책임을 해야 된다.

10. 아직 휴거되지 않은 자들은 ‘자기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이다. 자기중심으로 행하니 성자도 주도 그 마음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행하지 못한다. 고로 아직 휴거되지 못한 것이다.

11. 이제 <3.16>이 <휴거 날>인지 몰라서 안 왔다고 핑계 대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말아라. 평소에 그 면에서 그만큼 인식이 약했고, 영적인 것도 약했고, 깨어 있지 못했기에 안 온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차원을 높여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12. <올해 부활절> 예배는 ‘<3.16> 때 못 한 것의 한을 푸는 집회’였다.

13. 원래는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날인데 그날을 제대로 못 맞아 놓고, <3.16> 앞에는 작디 작은 <부활절>에 어떻게 행사를 크게 할 수 있나?’ 하면서 <부활절 행사>를 안 하려고 했다. 그러도 큰 날을 그리 보냈으니, 하늘과 땅에 가장 큰 죄를 범했다며 회개만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날이 ‘휴거 날’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 못 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3일 동안 성령님과 의논한 끝에 <올해 부활절>을 회복하는 날, 한을 푸는 날로 정하고 <부활절 행사>를 하게 했다.

14. 신부들 중에서 최고로 심정의 괴로움을 느끼고 최고로 애간장을 태운 조은 목사를 세워, 성령님과 선생이 그 몸을 쓰고 <부활절>에 몸을 내던지며 ‘성령집회’로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 몸을 통해 성령님과 선생이 그리 몸을 내던진 것이었다. 그로 인해 참여한 자들이 말씀으로 불을 받고, 마음을 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삼위일체께 사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다. 성자는 ‘세상에 남겨 놓은 분체’를 통해 그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영광을 받으셨다.

15. <부활절>에 선생이 직접 행하지 못하니, 선생의 분체이며 신부들 중에서 최고로 애간장을 태운 조은 목사를 시켜서 증거하며, ‘못 한 것’을 하고야 말았다. 결국 <3.16> 때 제대로 못 하여 심령이 죽어 있던 선생의 마음도 살아났고, 섭리 전체도 살아났다.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도 풀렸다. 그래서 선생을 대신해서 외치는 조은 부흥강사를 절대 믿고 따라 주며, 모두 하나로 뭉쳐서 그를 싸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이다. 선생이 직접 못 하면, 기어이 그 몸을 쓰고 하기 때문이다.

16. 몰라서 못 하면 한이 된다.

17.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곧 <증거의 시대>다. 고로 이때 증거하지 못하면 한이 된다.

18. 선생은 선생이 직접 못 하면, 기어이 ‘증거자’를 시켜서 할 것을 꼭 하고야 만다.

19. 모두 ‘이 시대와 주’를 증거해라. 그래야 선생과 선생의 한이 풀리고, 자신의 한도 풀린다.

20. 신약 때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성자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어라.” 하셨다. - 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신약의 증거자들’이 되어 외쳤고, 그로 인해 <신약의 교세>는 땅 끝까지 확장되었다. <증거>가 한을 푸는 것의 답이다.

21. 이 시대도 그러하다. 이제는 전체가 일어나 ‘증거자’가 돼야 한다.

22. <증거>는 자기가 변화된 것 증거,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증거, 자기가 구원받은 사연 증거, 시대 증거, 시대 말씀 증거다.

23.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변화된 것, 자기가 구원받은 사연은 ‘자기’가 가장 잘 증거한다. 이것은 선생도, 두 증인도, 다른 사람도 대신 할 수 없다. 고로 모두 ‘이 시대 증거자들’이 되어라.

24. ‘구원자’는 자신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는 ‘성자’를 증거한다. ‘구원자 증거’는 시대를 깨닫고 따르는 자들이 할 일이다.

25. 이제 ‘성자’가 떠나셨으니, 성자가 남겨 두고 간 ‘그의 육’을 증거해야 된다.

26. 이 시대와 주를 깨달은 자들은 개성의 빛을 발하면서 주를 증거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라.

27. 부흥강사가 그동안 왜 그리 불덩이가 되어 살았겠느냐. 본인이 ‘시대 주’를 깨닫고 외치니 성령의 불을 핵으로 받은 것이다.

28. <외치는 자>가 가장 크게 불을 받는다.

29. <외치는 자>와 <듣는 자>가 받는 불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고로 이제는 모두 ‘시대 증거자’가 되어 외쳐라. 그래야 원자폭탄 같은 성령의 불을 받고, 주와 일체 되어 능력 있게 행한다.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자가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승천하신 후, 이제 ‘성령의 시대, 증거의 시대’가 왔다. 성령님은 ‘이 시대와 주’를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과 능력’을 주시며 역사를 일으키신다.

2. 교역자들도, 성령의 불이 강한 계시자들도, 준비가 된 자들도 모두 ‘주’를 증거하며 외쳐라. 그 터전 위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야 더 뜨겁게 역사가 일어난다.

3. 앞으로 <성령의 부흥집회> 때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부흥강사 증거’를 잘해야 된다. 세계 최고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불덩어리 강사 아니냐.

4. 선생은 ‘지구가 생긴 이래 세상에서 제일 큰 부흥강사 한 명’을 소개하라고 하면,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성자께도 ‘조은 부흥강사’를 올린다. <성약역사 부흥강사>가 역사적으로 제일 깊고! 크고! 강하게!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는 ‘성자와 선생에게 인정받은 <성약 첫 번째 부흥강사>’다. ‘시대 구원자’를 바로 알고 ‘휴거’되어 외치니, 그 불이 최고로 강하고 크다.

5. (성령님) 너희가 무지하면,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6. 끼리끼리만 잘하지 말고, ‘성자와 주가 세운 자’를 잘 증거해라. 그래야 ‘성령의 불’이 붙는다.

7. 시기 질투 병을 고치고, ‘성자와 주가 세운 자’를 증거해라. 그러지 않는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
8. 성자와 선생이 누구를 세우면, 특히 교역자들은 그 사람을 다양하게 증거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불같이 역사해 준다.
9. <증거>도 안 하고 ‘은혜’만 받으려 하는 자는 <돈>도 안 내고 ‘음식’만 먹고 가는 자와 같다.
10. 모두 자기가 원고를 작성하여 말씀을 외치며 집회를 해 봐라. 그리고 자기는 어느 정도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 조은 부흥강사와 비교해 보아라. 그때는 깨닫고 부흥강사를 증거할 것이다.
11. ‘선생이 보낸 자’를 증거하지 않으면, ‘선생’이 가도 선생 증거를 안 하게 된다. 반드시 증거다. 증거해야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12. 이단들은 별것도 아닌 자인데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소개하고 증거한다. 그것을 보면 시기가 날 정도다. 증거해라. ‘말씀을 외치는 자’로 인해 ‘자기 휴거의 운명’이 좌우되니, 꼭 증거다.
13.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으려면, 증거다.
14. 성자와 주가 보낸 자 증거, 주 증거, 시대 말씀 증거, 시대 증거다.
15. 이제 ‘자기 영이 휴거된 것’과 ‘휴거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생활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매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16. 휴거됐어도, 휴거 중이어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보람도 없다. 그런 자는 이제 갓 교회에 와서 뭘 모르는 자와 똑같다. 그러면 <육의 삶>은 저 세상 사람들과, 저 기성 사람들과 별다른 바가 없어서 곤고하고 걱정이 몰아닥친다.
17. <3.16> 이후에 ‘육’이 아팠던 자들이 많았다. 이는 성자 승천 이후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못 한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잔치하니 나왔다.
18. <3.16>에 ‘육’이 알든지 모르든지 ‘준비된 영들’은 휴거되어 성자를 따라갔다. 그러나 ‘육’이 할 일을 못 하니 ‘마음, 생각, 행실’이 죽어 있었다. 그러다가 ‘육’이 알고 할 일을 하니 ‘죽어 있던 심령과 행실’이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19. 성경에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영의 사람>이다.” 했다. ‘자기 영’이 휴거됐어도, 휴거되는 과정 중에 있어도 ‘육’이 그 가치를 모르니 곤고했다. 그러나 ‘육’이 알고 행하니 땅에서도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심령이 살아나고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로 인해 ‘영’도 더욱 영향을 받아 휴거되지 못한 자는 휴거됐고, 휴거된 자는 더욱 차원을 높이게 되었다.
20. 이제는 <말씀>을 생명시하고 귀히 여기며 자기 책임을 다해라. 말귀를 알아듣고 행해라.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이니, 신랑이 눈치 주면 다 알아듣고 행해야 된다.
21. 구원자가 하는 말, 성령의 감동, 만물 계시는 <삼위일체의 말씀>이다. 고로 말씀을 듣거나, 감동을 받거나, 만물 계시를 받으면 예사로 여기지 말고, 눈치코치 알아채고 즉시 행해야 된다.
22. 단상을 통해 성자와 성령께서 분체를 통해 ‘급한 소리’를 할 때는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행해라. 말귀를 알아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3.16 때>처럼 때를 놓치고 평생 못 하고 끝난다.

1. <사랑해서 만지는 느낌>과 <미워해서 만지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다.
2. <사랑해서 대하고 말하는 것의 느낌>과 <미워해서 대하고 말하는 것의 느낌>은 ‘극과 극의 차이’다.
3. <생각>에 의해 ‘느낌’이 좌우된다.
4. 진실로 대하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느낌’이 달리 온다.
5. 상대를 ‘느낌’으로 알아라.
6.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생각’을 창조하셨다.
7.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생각’을 주셨다.
8. 자기를 알라고 ‘생각’을 주셨다.
9. <생각>이 흐릿하고 무의미하게 되면, <몸>도 그렇게 된다.
10. <인생의 차이>가 무엇이나, ‘생각의 차이’다.
11. <생각의 차이>가 ‘행실의 차이’를 낳는다. 그로 인해 ‘삶의 차이, 영의 차이’를 낳게 된다.
12.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육도 혼도 영도 온전히 성공한다.
13. <생각>을 ‘자기의 한 인생’으로 보아라. ‘생각의 길’을 잘못 들이면, 마치 ‘음식 맛의 길’이 잘못 들어 짜게, 맵게, 달게 먹듯이 <생각>도 그렇게 된다.
14. <생각과 체질>은 ‘한 통’으로 움직여 길이 든다.
15. <뇌>도 ‘하나의 예민한 신경 지체’다. ‘생각의 길’이 든 대로 ‘뇌’도 길이 들고, 그것이 ‘체질’이 된다.
16. 사람은 자기에게 편하고 좋게만 길을 들인다.
17. 자기에게 편하고 좋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라.
18. 편한 쪽으로 길이 들면, <생각>도 <몸>도 ‘편한 쪽’으로만 가진다. 결국 체질이 되어 계속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행한다.
19. 자기에게 편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그것이 너의 생각과 체질을 안 좋게 길들이고 있다.
20. 안 좋은 것으로 자기를 길들이면, ‘생각’도 ‘몸’도 망가지고 파괴되고 만다.
21. <전능자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이고 살아라. 그러면 ‘육’도 형통하고, ‘영’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영원히 형통하며 살게 된다.
22. 지구 세상의 인생들을 보아라. <육신>은 개성체이지만 다 비슷하다. 그런데 73억의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 <생각>을 잘못하여 망하고, 사고 나고, 불구자가 되고, 죽고, 각종으로 실패하고 사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23.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 보아라. 한 달만 그렇게 살아도 ‘신의 대상’이 되어 사니,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적 삶’을 살게 되고 ‘기쁨과 사랑의 세계’로 전환된다.

24. 신과 인간이 다른 것이 있으니 <신>은 ‘영체’로 살고, <인간>은 ‘육체, 혼체, 영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생각’이다.

<2015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25. <생각과 몸> 두 가지를 다 다스려야 된다. 생각으로 다스리기다.

26. 추우면, <몸>이 불 옆으로 가진다.

27. <생각>이 추운 것이 아니라 <몸>이 추우니, <생각>까지 추위를 느끼는 것이다.

28. <영>도 추위를 구분하고 느끼지만, <영>은 육보다 100배 더 추위를 다스리고 주관한다.

29. 사람의 ‘정신과 생각’은 추위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이 몸의 추위를 다스려 느낌을 막으면 추위를 못 느끼고 오래 견디는 것이다. 그 대신 <육>은 영향을 받아 추워서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 몸이 얼기도 한다.

30. <뇌신경>과 <육체>는 하나로 움직인다. ‘신경 줄’을 통해 뇌와 몸이 연결되는데, ‘신경 줄’은 ‘살과 뺨속’과 일체되어 같이 느낀다.

31. <생각>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몸’도 스스로는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육>이 ‘신경’을 통해 더위와 추위를 느끼고 <몸>도 그에 따라 움직인다.

32. ‘생각과 몸 실상 세계’다.

33. <생각>하면, 그 실상으로 <몸>이 움직인다.

34. <영의 세계>에서도 영이 생각하면 영의 몸이 행하게 된다. 그리고 생각한 대로 보이게 된다.

35. <생각>을 다스리고 <몸>도 다스리기다.

36. <생각>을 다스려도 <몸>이 체질이 되어서 <몸>이 가니, 70일씩 짜게 맵게 먹는 식습관을 개선하듯 ‘생각의 개선’을 해야 된다.

37. 개선할 때는 ‘다른 생각 하고 행하다가 망가진 생각, 행위, 체질’을 버려야 된다.

38. 생각하면 <뇌신경>이 작동되어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이에 따라 ‘신경’을 통해 <몸>에 전달되어 <몸>도 동시에 행하며 돌아간다.

39.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뇌>에 시동이 걸린다.

40. ‘생각의 전파’를 보내면, 바로 <뇌>에 시동이 걸린다.

41. 생각해도 <뇌>에 시동이 안 걸리는 자는 뇌가 굳었기 때문이다.

42. <생각>도 ‘생각의 시동’을 걸고 <육>도 ‘생각의 시동’을 건다. 가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쪽으로 시동이 걸린다. 또한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몸에 닿으면, 느끼면서 <뇌와 생각>에 시동이

걸리기도 한다.

43. <뇌의 확대체>는 ‘몸=전신’이다. 고로 <몸>이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무엇에 닿으면, <뇌와 생각>에 시동이 걸려서 움직인다.

44. <육 자체>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이 닿으면서 뇌에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뇌에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외부의 영향>에 의해 뇌에 시동이 걸리기도 하고, <영계>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의해 뇌에 시동이 걸리기도 한다.

45. 지도자는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느끼고 알고 시동을 걸어서 행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몸이 느낀 것이 뇌에 전해져 시동을 걸어서 행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지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느껴서 시동을 걸어 행하기도 한다.

46. <생각>은 ‘음식의 양념’과 같다. 세상만사 모든 것이 <생각>하는 대로 ‘느낌’이 달라진다.

47. <생각>과 <육>이 맞아야 행해진다. 한 가지만으로는 안 된다.

48. <뇌>는 성자, <신경>은 분체, <살>은 ‘따르는 자들’과 같다.

49. <뇌>와 <몸의 신경>은 하나다. <살>은 ‘신경’을 통해서 느껴야 느껴진다.

<2015년 5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숫자는 숫자로 해석하고 답을 찾아야 하느니라.

2. 사람이 죽지 않았어도 쥐약으로 밥을 비벼 먹는다면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이와 같이 작더라도 죄를 지으면 꺼림칙한 것이다.

3. 가령 사람이 쥐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음식과 같이 쥐약을 먹는다면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이와 같이 자위행위가 상대와 이성 죄를 지은 것이 아닌 자위적 행위라서 그 죄로 인해 죽지는 않는다 해도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4. 자기 양말을 빨지 않고 오래 신어서 냄새가 나면 죽지는 않아도 얼마나 끔찍하고 꺼림칙하겠느냐. 자위행위도 이와 같으니라. 그로 인해 ‘상대적 이성의 죄를 짓게 되는 생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5. 사람이 때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하면, 마음도 몸도 얼마나 상쾌하고 깨끗하겠느냐.

6. 뽀뽀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이성 행위’에 속하기도 하고, ‘반가움의 인사’에 속하기도 한다.

7. 뽀뽀나 키스는 모두 ‘이성의 행위’에서 온 풍속이 되었다.

8. ‘타락으로 보는 사랑’이 있고, ‘타락으로 안 보는 사랑’이 있다.

9. 사람이 몸을 씻지 않아도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마음도 몸도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혹여 남이 볼까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를 지어도 죽지는 않으나 마음도 몸도 꺼림칙하고, 남이 보면 부끄러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으니라.

10. 자기가 책을 썼는데 ‘꼭 써야 될 내용’을 못 쓰고 ‘쓰지 말아야 할 꺼리는 내용’을 썼어도 그것이 죄가 되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얼마나 꺼림칙하겠느냐.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도 그러하다. 그것이 큰 죄는 아니니 <영

흔>이 지옥에 안 가고 <육신>이 감옥에 안 갈지라도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꺼림칙하겠느냐.

11.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를 누가 보고 듣지 않았어도 스스로 꺼리고 부끄럽다.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에 해당되는 천사들과 함께 늘 다 보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12. 지옥이나 감옥에는 안 갈 행위지만 '스스로 꺼림칙하고 부끄러운 행위'라면 그것이 점점 '죄'가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며, 그 행위로 인하여 '깨끗함에 해당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느니라.

13.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선악 간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 '선한 행위'로 나타나고,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 '악한 행위'로 나타난다.

14. <단순한 자>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하여 일을 단순하게 해결하지만, <자세한 자>는 자세히 다 보고 행하여 깨끗하게 해결하느니라.

15. 자기 실력껏 노력하고 연구하며 열심히 행했다면, 자기 차원에서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가게 되어 결국 목적인 곳에 이르게 된다.

16. 삶이 아름답고 깨끗해야 '아름답고 깨끗한 것'을 만나게 된다.

17. '자기 행위와 마음'에 따라서 <인생길>이 나타나느니라.

18. 미련한 자는 자기 모순과 자기 그릇된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인정하며 살지만, 결국 그로 인해 함정에 빠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나니, 그제야 깨닫고 한탄하느니라.

19. 모르면 '옳은 것'도 부정하다가 결국 자기만 '사망'에 처해 홀로 갇혀 사나니, <무지>는 자기를 가두고 고통을 주느니라.

20.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 자기 환경에, 그 처지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니라.

21. 그때마다 성자와 성령이 보여 준 것들을 분별해야 깨닫고 알게 되느니라.

22. 모심과 사랑이니라. 모시면 사랑하게 되느니라.

<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한자리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다. 모두에게 똑같이 '귀한 말씀'을 해 줬다. 그런데 '일부 소수 무리'는 행하고, '나머지'는 행하지 않았다. <행한 자>는 기뻐 뛰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잔치를 했다. <행하지 않은 자>는 한이 되어서 슬퍼하며 탄식했다. 더러는 주저앉아서 '인생길, 신앙길'을 포기하기도 했다.

2. 한자리에서 똑같이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행하여 잔치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행하지 못하여 개탄하고 탄식하고 포기했을까?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일이 일어났을까?

3. <답> - 똑같이 귀한 말씀을 들었어도 '필요성'을 아니 행하고, '필요성'을 모르니 행하지 않는 것이다.

4. 사람이 '귀한 말'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다.

5. 안 하겠다고 하는 자들도 '필요성'을 알면, 서둘러서 우선권으로 그것을 즉시 행한다.

6. 사람이 말을 해 줘도 '필요성'을 알아야 깨닫고 행하게 된다. -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생명시하며 행해라.

7. <3.16>이 ‘휴거 날’이라는 것은 몰랐어도 ‘성자 승천일’이라는 것은 모두 알았다. ‘생명의 날’이라는 것은 모두 알았다. 그런데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서 안 온 것이다. ‘필요성’을 안 사람들이만 왔다.

8. 못 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댈 것 없다. ‘필요성’을 알면, 서둘러서 그 일을 최우선으로 행하게 되어 있다.

9. <3.16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던 일인지 여러 번 말해 주고 깨우쳐 주니 ‘필요성’을 알고, <부활절>에는 <3.16>보다 7배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늘 앞에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드리며 ‘휴거의 기쁨’을 찬양했다. 그리함으로 그날 ‘휴거 선’을 확 높여서 휴거된 자들이 많았다.

10. <부활절>에도 안 온 사람들은 그때 참여하는 것이 자기 휴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온 것이다.

11. <부활절>은 <3.16>에 못 온 자들에게 ‘마음을 풀고 한을 풀 기회를 준 날’이다.

12. 축복이 눈앞에 있어도, 귀한 말씀을 해 줘도, 기회를 줘도 ‘필요성’을 느끼고 알아야 행하게 된다.

13. 선생도 <월명동>이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성’을 정말 알았다면, 땅값이 쌀 때 다 샀을 것이다. 그러다가 ‘월명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깨달은 후부터는 후회하고 애간장을 태우고 심정을 태우며 늦게라도 목숨 걸고 행했다.

14. 사람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필요성’을 느껴야 행한다. 고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생명이다.

15.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로 귀한 일이라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안 하게 된다. 그로 인해 평생의 후회와 한이 남게 된다.

16. <3.16>은 천사장이 나팔 불기를 기다렸던 ‘휴거 날’이었다. ‘구원자가 태어난 평화의 날’이며, ‘성자가 떠나신 최고 영광의 날’이었다. ‘지상에서 성자를 마지막으로 대하는 날’이며,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었다. -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맞지 못하여 평생의 한이 되었다.

17. 앞으로 <3.16>과 같이 ‘자신이 인생을 좌우하는 귀한 날’이 많고,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필요한 일들’이 많고도 많다. 이제 진정 깨닫고 ‘그 날들’을 놓치지 말아라.

18. 사람은 <필요성>을 알수록 행한다.

19. <월명동>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월명동에 청중이 모여들지 않듯이, <3.16>을 정말 깨달은 자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주지 않으면 섭리사에 생명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3.16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 줘야 된다. 그래야 선교가 된다.

20. 선생은 ‘월명동의 필요성’을 알고 개발하면서도 ‘정말 이곳에 구름같이 많은 청중들이 밀려와서, 이곳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필요하게 쓰이려나?’ 생각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월명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면서 당황이 되어 더욱 집중하고 몸부림치며 급히 땅도 사고 산도 사서 겨우 딱 개발하고 만들어 놓고 1999년에 해외로 나갔다. <월명동의 필요성>을 일찍 깨달았다면 더 일찍 많이 개발하고 만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후에라도 기회가 생겨서 그때는 기필코 행하여 한이 풀렸다.

21. 말씀을 들을 때 <필요성>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찬란한 기쁨과 사랑의 세계’, 혹은 ‘비참한 세계’로 <운명>이 갈려 간다.

2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 구원자의 말씀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비참한 인생이 되고, 복직할 때까지 마음 지옥, 생각 지옥, 육신 지옥을 겪게 된다. 지옥의 고통을 당해 봐야 그제야 늦게 깨닫고 심정 태우고 애간장 태우며 행한다.

23. <생명의 말씀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24. <말씀의 필요성>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25. 말씀을 들을 때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때'다.

26. 말씀을 들을 때 '필요성'을 깨닫고, 서둘러서 기필코 행하기로 결심해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운명'을 좋게 결정하게 된다.

<2015년 5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상대가 행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절대 행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확실히 말해 주기다.

2. 귀한 말을 들어도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안 한다. 그러니 무조건 하라고만 하지 말고 <필요성>을 말해 주어 알게 해 줘야 된다.

3. <필요성>을 말해 주는 자가 설교도 강의도 잘하는 자이며, 상대가 행하게 만들어 주는 자다.

4. <필요성>을 모르면 '귀한 것'이라도 거저 줘도 안 한다. 그러나 <필요성>을 알면 거금을 들여 가면서라도 한다.

5. <시대 복음>만 전하지 말고 '이 말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우쳐 주는 사도들이 되어라.

6. <목적>을 두고 '필요성'을 확실히 깨우쳐 주어라.

7. 가르치는 자들은 하라고 소리만 지르며 말하지 말고 '해야 될 필요성'을 깨닫도록 진정 알려 주어라. 그래야 그 말을 생명같이 듣고 즉시 행한다.

8. 말만 많이 하고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지 못한 책임이 크다.

9.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진정 생명같이 들어라. 온전히 듣지 못하니,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찢값을 받게 된다.

10. <하나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믿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믿고 행해라. 그리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오직 <그>만이 너를 '삼위일체'로 인도할 자이며, '천국'으로 인도할 자이며, 너를 '구원'할 자이며, 너를 '휴거시킬 자'이며, 너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할 자다.

11.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전에, 너를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며, 너에게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세계>를 주기 위함이다.

12.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자기의 믿지 않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옥으로 간 사탄'과 같이 점점 지옥으로 가게 된다.

13.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낀 '자기 삶의 행위'로 인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게 되는 것이다.

14.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필요성을 알고 행한 자는 절대 영원히 지옥으로 가지 않을 자다.
15. 구원자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순간에 ‘필요성’을 깨달아라. 말씀을 들을 때 ‘필요성’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16. <말씀을 듣는 시간>은 현실의 자기 운명을 좌우시키는 시간이다.
17. 말씀을 들을 때 ‘필요성’을 느끼면, 말씀이 끝난 후에 즉시 행한다. 그러므로 비참하고 후회되고 애간장 타고 한이 되는 삶을 벗어난다.
18. 말씀을 들을 때 ‘필요성’을 못 느끼면, 말씀이 끝난 후에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참하고 후회되고 한이 되는 길로 가게 된다.
19. 왜 섭리역사에서 사느냐.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여호와를 믿고, 성령과 성자를 믿고, 구원자를 믿느냐. 안 믿는 자들과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이나. - 전능자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함이 아니냐. 그리함으로 구원받아 <영>은 천국에 가게 하고, <육>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삼위일체와 구원자와 함께 평안히 살기 위함이 아니냐.
20.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이 시대 하늘의 신부>가 되지 못한다. <하늘의 자녀>도 되지 못한다.
21.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22. 이 시대 구원자가 <말씀>을 받아 주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도 각자에게 ‘자기가 행할 것의 필요성에 대한 답’이 나간다. 고로 말씀을 들을 때 ‘필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23.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존칭어’가 없다. 지구 세상 73억 명이 다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지시’다. 모든 말씀이 ‘생명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뒤에 절벽이 있어서 한 발짝만 더 뒤로 가면 죽는데 “가지 말기 바랍니다.” 하겠느냐. “가지 마라. 더 가면 죽는다.” 하며 명령하고 지시하신다.
24.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은 ‘너의 육과 영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명령과 지시’임을 깨닫고 <행할 필요성>을 꼭 느껴야 된다.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보화가 문힌 밭>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면, 그 밭을 사야 할 ‘필요성’을 몰라서 반값에 사 가라 해도 왜 그런 것을 사냐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며 안 산다. 그러다 아는 자가 “그 밭은 보화가 문힌 밭이다.” 확실히 말하면, 그날 빗을 내서라도 쫓아가서 자기한테 팔라고 사정한다.
2. 하라고 하지만 말고 ‘필요성’을 넣어 주어라. 이것이 ‘핵’이며 ‘열쇠’다.
3. 선생은 평소에 ‘큰 바위의 필요성’을 알고 늘 찾았다. 그래서 <성자바위>도 처음에는 ‘일곱 가지의 형상’이 있는지 몰랐지만, 큰 바위라서 월명동에 옮겨 놓았다. 성자께서 ‘나의 살아 있는 정신과 생각’에 역사하시어 ‘나’를 통해 행하심으로 섭리역사의 큰 상징인 <성자바위>를 주셨다.
4. <성자바위>는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성자 형상, 인독수리 형상, 치타 형상, 팬텀기 형상, 성자 발바닥 형상, 이렇게 총 일곱 개의 형상이 있는 <창조주와의 사연이 얹힌 세계적인 걸작품>이다.
5. <3.16>도 ‘일곱 가지의 형상이 있는 최고로 귀한 날’이다. 첫째, 성자 승천 날이다. 둘째, 기다리고 희망하던 영 휴

거 날이다. 셋째, 천사장이 나팔 분 날이다. 넷째, 구원역사 6000년 동안 기다렸던 창조 목적을 이룬 날이다. 다섯째, 천국 문이 열리고, 1000년 혼인 잔치를 시작한 날이다. 여섯째, 시대 구원자가 탄생한 날로서 성자께서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 날이다. 일곱째,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다.

6. <3.16>이라는 숫자에 담긴 뜻이 있다. <316>에서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고, <1>은 ‘보낸 자 분체’다. <6>은 성자께서 6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펴 오다가 성약역사를 시작하시고 ‘분체의 육신’을 쓰고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이룬 날을 의미하는데, <6>은 ‘6000년을 축소한 수’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끝낸 것같이 ‘6000년 동안 인간을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로 만들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끝내는 날을 의미한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는 기뻐하며 쉬었듯이, 삼위일체는 6000년 동안 행해 온 창조 목적의 역사를 <휴거>로 완성하고 천국에서 <혼인 잔치> 하며 기뻐하셨다.

7. <3.16>은 지구 창조 이래, 구원역사를 펴신 이래 제일 크고, 제일 가치 있고, 제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날이다.

8. <3.16>을 절대 작게 보면 안 된다. 앞으로 <이 귀한 날의 필요성>을 1000년 동안 이야기할 것이니, 모두 이날을 증거하여야.

9. <3.16>에 자기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이날을 멀리하지 말고, 제대로 깨닫고, 회복하고, 마음을 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삼위일체 사랑에 불이 타서 행해라. 그래야 휴거되지 못한 자가 휴거되고, 휴거된 자는 다음 차원으로 휴거되고,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이 더욱더 타오른다.

10. <사람>도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 모르면, 가치 없이 보고 아깝게 못 쓰고 끝난다.

11. 사람은 다 귀하다. 각자 ‘개성체’이니 모두 다 귀하고 크다.

12.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 깨달아라. 그래야 삼위일체께 착 붙어서 행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해를 받지 않고, 삼위일체도 귀히 쓰신다.

13. 매일 ‘자기에게 해당되는 복’이 지나간다.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자기에게 온 복’을 차 버린다.

14. 모르면 소경이다. 고로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필요성’을 모르니 붙잡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15. <필요성>을 알려면 기도해라. 시대 말씀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 삼위일체의 필요성, 성령 역사의 필요성, 증거의 필요성, 관리의 필요성, 자기 자신의 필요성, 실천의 필요성, 기도의 필요성 등 ‘필요성’을 깨닫도록 기도해라.

16. <성자>가 떠나시고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큰 손해다.

<2015년 5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늦게 일어나고 기도도 안 해지는 것이다.

2. <운동>과 <건강검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못 느끼니 ‘건강’에 신경 쓰지 않다가 자기에게 홀연히 ‘병’이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

3. <게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심령’이 죽고, ‘심정’이 죽고, ‘감’이 죽고, ‘휴거’도 죽고,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4. <구원자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그냥 하는 말로 듣다가 결국 욕도 혼도 영도 ‘사망’으로 가게 된다.
5. <말씀, 계시 말씀, 감동 계시, 만물 계시, 꿈, 찬양,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필요성’을 모르면 땅을 치고 통곡하는 비참한 날이 점점 다가온다.
6. <구원자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 구원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길’로 가게 된다.
7. <기도 소통, 편지 소통, 대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는 자는 시켜도 안 한다. 고로 ‘불통’이 되고 ‘형통하는 길’이 막혀 버린다.
8. 설교할 때 <제스처, 강약, 발음, 음성, 띄워서 읽기, 심정>이 설교자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은혜와 불’이 죽는다. 그러다가 ‘하늘의 귀한 사명’을 뺏기고 실직자가 된다.
9. <자기중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자꾸만 ‘삼위일체와 주의 반대편’으로 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가 버린다.
10.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 서로 의논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 삼위일체도, 주도, 따르는 자들도, 형제들도 무서워서 가까이 안 한다. 그러다 결국 자기만 해를 입는다. 결국 계절이 오듯 ‘곤고한 날’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11.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죄인’이 되어 ‘사망’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
12. <휴거된 영>이라도 ‘육’이 회개하지 않으면, ‘육’이 지옥의 고통을 그리도 받고 살게 된다.
13.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가 매일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안 하고 사는 것이다. 그러다가 점점 사탄에게 끌려가게 된다.
14. <휴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휴거 말씀을 들어도 휴거되기 위해 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욕도 영도 비참한 날을 맞이하고, 육 평생, 영 영원히 후회만 하게 된다.
15. <모르는 것을 알려 주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보통으로 가르치고 배우다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6. 하나님과도, 성령님과도, 성자와도, 주와도, 사람들과도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대화를 안 하다가 ‘관계’가 끊어져서 남남이 되고, 뜻을 모르고 행하다가 수고가 헛되고 큰일까지 당한다.
17. <확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확인을 안 하여 사기를 당하고, 다치고, 불구자가 되고, 평생 해를 입기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하게 된다.
18. 확인하지 않고 행하다가 얼마나 해를 당하는지 모르면, 항상 ‘해’를 벗어나지 못한다.
19. <구시대>와 <이단 종교>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르면 또 구시대로, 이단 종교로, 사망의 세계로 가게 된다.
20.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삼위일체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 계속 곤고하고, 걱정이 몰아닥치고, 한을 풀지 못하고, 손해만 보면서 살게 된다.
21. <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성’을 모르면 때를 놓치고 살다가 낙심하고 한이 맺혀 살게 된다.

22. <빨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빨리 안 하여, 빨리하는 자에게 다 뺏기고 살고, 마지막 순간의 때를 놓치고 한을 품게 된다.
23. <생활 속에서 주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놀면서도 안 부른다. 그러다가 '감'이 떨어져서 주를 등지게 되고, 그때 주는 감동을 못 받아서 해를 당한다.
24. <전도의 필요성>을 모르니,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전도의 필요성>을 알고 생명을 전도하여 끝까지 키우니, 결국 그가 자기 몸이 되어 자기가 못 한 일을 대신 해 주었다. 그로 인해 섭리 전체가 1인당 100억씩 준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주었다.
25. <성령의 불을 받는 것>과 <성약역사의 부흥강사>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 모르고 소홀히 대하다가, 결국 '자기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기 갈 길'이 막혀 버린다.
26. <관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관리하다가 말게 되어, '자기'에게, 또 '생명들'에게 지금까지 투자한 정성과 시간과 물질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만다.
27.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니, 사랑하는 자를 교육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하게 하고 무지의 고통에 시달리게 한다.
28. <이성 타락>이 얼마나 자기 운명을 사망으로 기울게 하는지 모르면, 한때 좋아서 즐기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29. <주를 속이고 보고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모르면, 주를 계속 속이다가 결국 욕신이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30. <사탄과 인사탄의 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면, 결국 그들을 따라서 '사탄의 세계'에 가게 된다.
31. 앞으로 <3.16>과 같은 날이 또 닥친다. '이날의 필요성'을 몰라서 이날을 제대로 맞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한이 되었음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성'을 깨닫고 행하여 두 번 다시는 인생의 한을 남기지 말고 매일 축복의 길을 가라.

<2015년 5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환경>도 '하나의 건물'이다.
2. 공원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도 '하나의 드넓은 자연 건물'이다.
3. 사람이 많으면 '자연 건물'을 세워야 된다.
4. 서울도, 대전도 처음의 환경은 산과 골짜기였다. 자연이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살게 되니 '산과 골짜기 환경'을 없애고 '집과 건물들'을 지은 것이다.
5. 환경과 집이다. '환경'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육적으로도 이상의 삶이 이루어진다.
6. 영적 세계도 '환경'과 '집'이 다 있어야 된다.
7.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켜 구원하고 더 큰 휴거를 이루면, 천국에서 자기 영이 살 '영의 집'을 짓게 된다. <영의 집>은 자기 육이 의를 행하여 지어 나가게 된다. 천국에 '영의 집'을 지은 자들에게는 '천국의 환경'이 주어진다.

8. 섭리사는 한 민족에게만 뻗어 나간 '아파트 같은 신앙의 삶'이 아니다. 민족과 세계까지 복음이 뻗어 나갔으니, '큰 공원을 가지고 별장을 짓고서 큰 자연 세계를 차지하고 사는 격'이다. 처음 신촌에 있을 때는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역사를 시작했다. 이제는 복음이 세계로 뻗어 나가서, 치타가 그렇게 빨리 뛰어도 끝까지 가려면 다리가 아파서 쉬고 나서 또 다시 뛰어야 된다.

9. <영원하지 않은 것>은 허무하다. 결국은 끝나기 때문이다.

10. <육신이 먹는 것>은 배설물로 없어진다. <그로 인한 영양분>은 육의 살과 피와 뼈가 되어 존재하지만, 그 역시 늙으면서 썩어 없어진다.

1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들었으면, '육'이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영의 존재'가 변화되어 '영원한 영의 몸'으로 살게 된다.

12. <영원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라.

13. <본인이 없어서 없어지는 것>과 <때가 되어 없어지는 것>은 '허무함의 차이'가 크다.

14.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생각을 잘해라. <생각>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15. <생각>을 온전히 하고서 행해라.

16. <생각>에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고로 생각을 잘했는지 확인하고 행하여라.

17. 한 번에 다 못 본다. 여러 번 다시 보아라.

18. 여러 가지로 반복하면서 '감'을 잡아라.

19.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면, 신의 생각이 되어 행하게 된다.

20. 깨달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21. 확인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22.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23. 알면, 생각이 달라진다.

24. 주의 말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25. 시대 말씀을 배우면, 생각이 달라진다.

26. 기도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고로 기도해라.

<2015년 5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은 여성 신으로서 상천하지의 최고의 여왕이시며 천모이시다.

2. 성령님은 여성 신이니, 정말 섬세히 살피시고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3. 성령님이 여자이니,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시니, ‘전능자’이시다.
4. 성령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이시다. 고로 그 사랑이 너무 크다. ‘태양같이 뜨거운 사랑 덩이’이시다.
5. ‘불’ 하고, ‘감동’ 하면 지구 덩이가 녹는 위력의 감동의 신, ‘성령님’이다.
6. 성령님이 옆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쳐다보며 칭찬해 주시면, 마치 공주가 자기 짝을 찾으러 다니다가 “너 마음에 든다.” 하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행복하다.
7. 상천하지의 최고 미인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못 본 자는 ‘상천하지의 최고 미인’을 상상해서 생각해 보아라.
8. 성령님을 제대로 알면, 성령님께 폭 빠져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안 보인다.
9. 성자가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부터 ‘성자’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을 늘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된다.
10. <성령님과 늘 같이 사는 방법>을 알고 행하여 성령님과 같이 살게 되면, <황금성>에서 성령님과 단둘이만 사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11. <영>이 휴거됐어도 <그 육>이 성령님과 같이 사는 자는 거의 없다.
12. 조건이 되면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성령의 역사는 해 주신다. 그러나 ‘성령님과 늘 같이 붙어서 사는 자’는 없다.
13. 성령님의 프라이드는 상천하지의 최고다.
14. 성령님은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해도 크게 보시지 않는다. 마치 6~7세 되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엄마 진짜 사랑해.” 하면, 엄마는 “나도 네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 하며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이 대하신다.
15. 성령님은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자기 몸>을 깨끗이 하여 삼위일체께 내어 드리고, ‘자기 육’을 통해 ‘삼위일체의 일’을 하게 해 드리는 자를 가장 크게 보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육’으로 삼고 행하시며, 늘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살아 주신다. - ‘그 육신’을 통해 ‘삼위일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16. 성령님은 ‘썩은 생각으로 더럽게 사는 것’과 ‘생활을 더럽게 하고 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
17. 성령님은 ‘청결하고 깔끔한 여신’이다.
18. 성령님이 얼마나 깔끔하신지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지구>를 씻어 오라고 했는데 모래 하나만 묻혀 와도 다시 씻어 오라고 할 정도다.
19. <성령님과 같이 사는 방법>을 깨닫고 성령님과 같이 살면, 성령님이 같이 해 주시니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다.
20. (성령) 내가 ‘너의 몸’을 쓰고,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같이 살 수 있다.

1. 성령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맡은 일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대접하며 잘해 드려도 계속 옆에 붙어서 살지 않으신다. ‘생각의 차원’이 높으시고, ‘성령님의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2. 성령님은 우리가 ‘조건’이 되면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불을 주신다. 그러나 계속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시고 곧 할 일을 하러 떠나신다.
3. 성령님과 ‘멀리 떨어져서 통하는 것’과 ‘가까이 옆에 계시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살이 닿는 느낌’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살이 닿는 느낌’이 다르듯 차이가 있다.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다르듯 차이가 있다.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몸이 닿아 사는 것’이 다르듯 차이가 있다.
4. 자기가 좋아하는 노루나, 사슴이나, 치타나, 예쁜 새가 자기 방에 들어왔는데 <자기 방에 계속 머물며 같이 살 방법>을 알고 같이 살게 됐다면, 그렇게도 기쁘고 좋고 신비할 것이다. 하물며 천하에 최고로 예쁘고 아름답고, 최고로 잘해 주시는 여신 성령님이 <늘 자기를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방법>을 알게 되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이며 영광이겠느냐.
5. <성령님과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도 ‘가치’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성령님과 같이 살지 못한다.
6. <성령님과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목숨 걸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자만이 성령님과 늘 같이 살게 된다.
7. 왕비에게 온갖 것을 대접하며 잘해 줘도 왕비는 ‘생각의 차원’이 다르고 ‘할 일’이 다르고 ‘자기 위치’가 있기에 “고맙다. 대접 잘 받았다. 계속 열심히 해라.” 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떠난다. - 상천하지의 최고의 여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8. <성령님과 늘 같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은 1조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
9. <성령님과 늘 같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지 않게 해라.
10.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 쉽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는 보다 어렵다. 그래도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하시게 하며 ‘늘 모시고 같이 살기’는 정말 어렵다.
11. 성령님은 ‘여신’이다. 성령님과 같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12. 성령님은 ‘생각과 행위의 차원이 높고 예민한 여신’이시다.
13. 성령님이 옆에 계시도 <마음, 생각, 행위>가 성령님과 떨어져 있으면 사명이 큰 자라도, 어른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성령님과 같이 못 산다.
14. 나이가 어려도 성령님께 ‘자기 육신’을 내어 드리며 자기를 통해 ‘성령님의 일’을 하게 해 드리면 그를 통해 ‘성령님의 뜻’을 이루게 되니, 성령님은 그 사람을 ‘최고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육신’을 쓰고 늘 같이 살아 주신다.
15. 계시자가 어려도 ‘자기 몸’을 쓰라고 내주니, 성령님은 그를 통해 일을 하느라 안 떠나고 같이 사신다.
16. 성령님과 ‘한 주관권 안’에 살면서 <성령님의 생각>과 일체 되어 <성령님의 몸>이 되어 <성령님의 일>을 해 드리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그 육신’을 쓰고 계속 같이 살아 주신다.

17. (성령) 네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몸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 맛으로 늘 너와 같이 산다.
18. (성령) 내가 너의 몸을 쓰고,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같이 살 수 있다.
19. 성령님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펴려 오셨다. 고로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가셔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동행하신다. 그러나 계속은 못 하신다.
20. 그러나 ‘자기 마음’을 다 비우고, 성령님께 ‘자기 몸’을 내어 드리며, ‘성령님과 일체’ 되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 몸을 통해 ‘성령님의 희망’을 이뤄 드리니, 성령님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육신’을 쓰고 행하며 같이 살아 주신다.
21. <성령>이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인간이 혼자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일을 하고, 얼마나 더 위력 있게 증거하고 행하시겠느냐. 성령이 ‘네 육신’을 쓰고 행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네 마음’을 비우고 ‘네 육신’을 성령님께 내드려라.

<2015년 5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신>은 ‘영’이라서 ‘육신’이 없다. 고로 ‘지구 세상’에 뜻을 펼칠 때는 ‘합당한 자’를 택하여 ‘그 육신’을 쓰고 역사하신다. - 메시아, 선지자, 사사, 사도 등 그에 해당되는 사역자들이다.
2. <신>은 ‘육신’이 없으니, ‘육신의 발판’이 없으면 세상에 뜻을 못 펼친다.
3. 하나님도 ‘육신’을 쓰고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4. 성자도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5. <비행기>도 ‘활주로’가 없으면 착륙을 못 하고 당황하여 공중에서 빙빙 돌기만 한다. ‘활주로’를 내줘야 착륙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 <신>이 ‘지상’에서 뜻을 펴야 하니, ‘육의 발판’이 있어야 ‘하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신다.
7. 고로 <삼위일체가 최고로 좋아하는 자>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삼위일체께 자기 육신을 내주는 자’다. 삼위일체는 그 사람을 ‘자신의 육’으로 삼으시고, 그를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신다.
8. <자기 육신>을 내주되, <자기 생각>을 비우고 <삼위일체의 생각>에 맞게 내줘야 삼위일체가 ‘그 몸’을 쓰고 역사하며 행하신다.
9.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육신>을 삼위일체께 내드리면 그 몸과 마음이 ‘삼위일체의 궁’이 되고 ‘집’이 되니, 삼위일체는 그 사람을 ‘사랑의 상대’로 삼고 ‘그 육신’을 쓰고 사신다.
10. 하나님은 ‘모세의 육신’을 쓰고, 각종 표적을 보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치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셨다.
11.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육신’을 쓰고 가나안의 7개 족속과 31명의 왕을 물리치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셨다.
12. 하나님은 ‘삼손의 육신’을 쓰고 블레셋 군대를 이기셨다.
13. 하나님은 ‘다윗의 육신’을 쓰고 원수 사탄을 멸하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14. 신이 지상에 하늘의 뜻을 실현하실 때는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 이 시대에도 ‘이 진리’를 안 자가 ‘자기 생각’을 짝 비우고 ‘자기 육신’을 성삼위께 내드렸다. 고로 성자는 <재림 때> 그를 ‘자신의 육’으로 삼으시고, 37년 동안 그 입을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셨고, 성자가 오신 징조로 그와 함께 ‘지구 세상에 수백 가지 징조’를 보이셨고, 그를 통해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결국 <휴거>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했다.

15. 자기를 중심하면, 불안해서 안 쓰신다.

16. 자기 생각을 비우지 않고 자기를 중심하면, 즉시 ‘인성’으로 돌아가고 ‘사탄’이 들어가니 성자도 성령님도 그 몸과 마음에서 나와 떠나신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육신을 내준 자’에게 가신다.

17. 하늘의 일을 맡아 사명을 하는 자들도 ‘자기 사명’에 빠져 일하면, 성령님은 잠깐만 보고 가신다.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육신>을 내드려야 된다.

18. 성령님이 ‘자기 육’을 쓰고 행하게 하려면 신령해야 한다. 고로 기도해라. 성령과 성자가 오셔서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하시라고 간구해라. 또한 성령님과 구원자가 함께하는 것을 깨닫도록 간구해라.

19. <성령님>은 ‘구원자의 혼과 영’을 쓰고 가신다. 그리고 ‘상징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타내신다.

20. 남자와 여자도 서로 ‘육신’을 내줘야 사랑도 이루고 자녀도 낳는다. 성령님께 ‘자기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내드려야 성령님이 그를 통해 시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여 시대를 잡으신다.

21. <자기 육신과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내주면 ‘사탄의 몸’이 되고, ‘이성’에게 내주면 ‘그 사람의 몸’이 되고, ‘성령’에게 내주면 ‘성령의 몸’이 된다.

22. 네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 내드려라. 그러면 너 스스로는 할 수 없는 ‘큰 뜻’을 이룬다. 빨리 ‘휴거’된다. 휴거된 자는 더욱 ‘휴거의 차원’을 높인다.

23. 늘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몸’을 성령님께 내드리면, 성령님은 ‘그 몸’을 쓰고 같이 살면서 ‘시대의 큰일’을 행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불러도 멀리서 대답하며 통하기만 하시고,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돕기만 하신다. <성령님이 같이 살면서 그 육을 쓰고 행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멀리서 통하며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그 위력’도 ‘역사하는 힘’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크다. 성자 승천 후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때, 무엇을 가지고 위력 있게 시대를 증거하고 주를 증거하며 사도로서 살려느냐. 성령의 감동만 받지 말고, 성령의 불만 받지 말고, ‘네 생각’을 다 비우고 <지구 덩이를 다 녹이는 감동과 증거의 여신 성령님>께 ‘네 몸’을 내드려라. 그리함으로 성령님이 ‘네 육’을 쓰고 너와 같이 살면서 행하게 해라.

24. 성자 승천 후 38일이 되도록 성자와 한 마디도 통하지 못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하면서 <성령님과 같이 사는 방법>을 깨닫고 행하니, 그때 성자와 통하면서 성자가 한마디 하셨다. - 나 성자와 성령님이 ‘보이는 너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편다는 것을 알아라.

25. 성령이 오셔서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더욱 강력히 증거하고 가르치시며 ‘지금’ 역사를 펴 나가고 계신다.

<2015년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령을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은 즉시 떠나신다.

2. 성령이 한 번 떠나시면, 그 후로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3. 성령이 떠나고 나서 성령님을 부르면, 천사나 사역자들만 보내시며 성령으로 대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시는 것과 그 위력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4. 성령님은 ‘여성 신’이라서 아주 세밀하시다. 고로 아주 자세히 가르치시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하신다.
5. 성령님은 ‘깔끔하고 청결한 여신’이시다. 고로 게으르고, 깨끗하게 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고, 혈기를 내고, 말을 강하게 하여 상대를 주눅 들게 하고, 형제를 무시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쓰고 나타나서 정말 따끔하게 혼내신다. 그래도 안 고치면, <최고의 여왕인 천모 성령님>을 무시한 것이 되어 정말 혼난다.
6. 성자의 말을 무시하여 성자의 마음이 돌아가면, 성자는 10~20일 만에 돌아오신다. 그러나 성령님은 마음이 돌아가면, 떠나셨다가 1~3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다.
7. 성령님은 ‘여성 신’이라서 생각이 예리하시다. 고로 세밀하게 낱낱이 가르치시며 ‘우리의 나쁜 버릇’을 길게 끌지 않고 아예 고쳐 버리려고 하신다.
8. <성자 승천 날>은 ‘휴거 날’이었다. 그때부터 천국에서는 ‘혼인 잔치’가 열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휴거 문’이 열렸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야 된다.
9. <성자>는 ‘남자’라서 마음이 약하다. 고로 ‘휴거’를 두고 급하니까 애원하며 빌었다.
10. <성령님>은 ‘여자’라서 다르다. 애원하며 빌지 않으신다. 성경 말씀처럼 지난날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밀하게 가르치시며 ‘우리의 나쁜 마음과 버릇’을 깨끗이 고치게 하신다.
11. <서운함>은 마귀 족속에에서 온 것이다. <서운함>은 썩은 정신에서 온다. 고로 ‘서운함을 타는 것’도 죄다. 자꾸 서운함을 타는 자들은 절대 <휴거 600>에 오르지 못한다.
12. 성령님은 성자같이 애원하고 빌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령님의 말을 안 들으면 ‘감동’을 주신다. 그래도 안 하면 다른 자에게 가신다.
13.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는 성령님의 위신을 세워 준 것이 되어 살리신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 성령님께 무릎을 주고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 자가 되어 안 받으신다.
14. 그동안 성자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구원자를 통해 ‘휴거’에 대해 그리도 말씀하시며 빌고 애원하셨건만, 그때 치타같이 독수리같이 빠르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과 자기 삶에 빠져 머뭇거리다가 <지구 역사상 최고로 귀한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을 제대로 맞지 못했다. 성자 승천 후, 성령이 오셔서 지난날을 생각나게 하시며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신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증거와 가르침’을 그대로 네 마음속에 받아들여라. 머뭇거리지 말고 치타같이 빠르게, 독수리같이 빠르게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또 <성자 승천일>과 같이 한이 되는 날을 맞게 된다.
15. 성령님과 같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딱 한 길뿐’이다. <네 마음>을 비우고 <네 몸>을 성령님께 내드려라. 그래야 성령이 <너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며 소원을 이루고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성령님이 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같이 살아 주신다.

<2015년 5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령) 각각은 못 산다.
2. (성령) 너와 내가 각각이면, 같이 못 산다.
3. (성령) 일체 되면 같이 산다.

4. (성령) 내가 감동을 주고, 도와주고, 역사는 해 줄 수 있다.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관리할 때,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합당하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줄 수는 있다. 그러나 늘 같이는 못 산다.

5. (성령) '네 마음'을 싹 비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나 성령이 '네 마음과 몸'에 들어가서 살면서, '너의 육신'을 쓰고 작든지 크든지 할 일을 한다. 그리함으로 나의 뜻을 이루니, 그 맛으로 같이 산다.

6. (성령) 마음과 몸이 신과 떨어지면 같이 못 산다. 그러나 마음과 몸이 신과 일체 되어 살면, 그 육을 통해 '전능자 신의 일'을 하니 같이 살 수 있다.

7. (성령) 떨어져서는 못 살고, 일체 되면 같이 산다.

8. (성령) 신과 일체 되지 않고 각각 살면, <인간>은 늘 '인간의 일'을 하며 살게 된다. 고로 <신>은 '그 몸'을 통해서 는 '할 일'이 없다. 신이 그 사람만 바라보며 종일 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 그와는 같이 못 사는 것이다.

9. (성령) 전능하신 절대신은 '너 따로, 나 따로' 하면 같이 못 산다. 일체 돼야 한다. 그래야 '그 육신'을 쓰고 작으나 크나 '신의 일'을 하게 된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자기 몸'을 가지고 '신의 일'을 하니, 신과 같이 살게 된다.

10. (성령) '네 마음'을 비우고 성자와 나 성령에게 '네 몸'을 내주면, 그때는 같이 산다. 성령집회 때나,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는 순간순간 역사한다. 그러다가 네가 '네 마음'으로 돌아가니, 그때는 같이 살 수 없어서 '네 몸과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몸'을 성자와 나 성령에게 내주며 일체 된 자에게 들어간다.

11. (성령) 집중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외칠 때가 '나 성령과 성자와 교통할 때' 다.

12. (성령) 삼위일체는 '네 육신'을 쓰고서는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나 일체 되지 못하고 각각이면 같이 못 산다. 신은 '인간의 육신'을 써야 '그 마음'을 주관하며 '신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2015년 5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할 때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 후에 봐야 안다.

2. 자기 차원이 낮을 때에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 후에 차원을 높이고 나서 보면, 못한 것이 보인다.

3. 자기 수준과 자기 지능으로 자기 혼자 하지 말아야 후에 봐도 후회하지 않는다.

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하고, 같이 일하는 자들과 함께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해야 부족하게 하지 않고 후에 후회하지 않는다.

5. <한 가지 존재>에는 '만 가지 형상'이 있다.

6. <인간>은 '모든 존재물들'을 다 닮아 있다.

7. <자연성전의 형상>은 여러 가지로 보인다. 큰 의자, 큰 손, 사랑 지체 등으로 보인다.

8. <원인>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9.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아라.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도 신비하지만, '만물들이 기능을 하는 것'이 더 신비하다. 만물의 기능을 보아라.

10.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만물들이 기능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탄스럽고 신비하겠느냐.
11. 잘못 만들면,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
12.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와 만물들을 잘 만드셨다. 고로 시계같이 정확하게 기능을 잘한다.
13. 인간은 '생각'으로 기능을 한다. 고로 <생각>을 잘못하면 인간으로서 기능을 잘 못 하게 된다.
14. <생각>을 잘하게 만들기다.
15. 만들어 났어도 처음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 <자동차>도 시동을 걸어야 제 기능을 한다. <생각>도 삼위일체의 생각으로 시동을 걸고 생각을 잘해야 제 기능을 한다.
16. <하늘나라>에는 '썩은 것'이 전혀 없다. 먹어도 썩지 않고 분해되어 없어진다. 이는 '생각'으로 원하는 대로 없애기 때문이다.
17. <육의 세상의 것>은 '생각'하고 '몸'으로 없애야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의 것>은 '생각'으로 원하는 대로 없앤다.
18. <천국>은 생각하면 바로 보인다. <지상>은 생각한 것을 몸으로 직접 가서 봐야 보인다. 혹은 화면을 통해 봐야 보인다.

<2015년 6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말한 것을 상대가 깨닫고 이해하면, 더 깊고 높은 것도 말해 준다.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2. 사랑하는 자가 물을 줬을 때, 그 물을 마시면 사랑이 느껴진다.
3.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무엇을 주셨을 때, 그것을 받으면 생각하는 대로 삼위의 사랑이 느껴진다.
4. 자석에 붙어 있는 쇠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자석에서 떨어지면 '쇠 역할'만 하게 된다.
5. <성령님>께 착 붙어야 '자기에게 해당되는 성령의 생각'이 느껴지고 전해지고, '성령의 힘'을 받게 된다.
6. <주>께 마음과 생각이 착 붙어 있는 자라야 '주의 마음과 생각'을 느끼고 받게 된다.
7. 이 시대 <성약역사>를 붙드는 자만이 '성약역사 신부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시대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알게 된다.
8. 어떤 곳이든 거기에 붙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뜻을 깨닫게 된다.
9. <악>에게 붙으면 '악'이 느껴지고 '악한 것'을 전해 듣게 되고, <선>에게 붙으면 '선'이 느껴지고 '선한 것'을 전해 듣게 된다.
10. <사탄>에게 연결되어 있거나 붙으면 '사탄의 것'이 느껴지고 전해져 온다.
11. <주>께 붙어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기다.
12. <우상>에게 붙어서 느끼고 깨닫고 배우면, 누구든지 '그 영혼'은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고, '그 육'도 세상에

서 <사망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13.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돕듯이 도와주고 역사하신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결국 때가 되어 <육적 심판>을 하시고, 나머지는 <영의 심판>을 하신다.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먹기 싫다. 그러나 <음식>을 보면서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면 온종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2. <사랑>도 ‘육적’으로 하면 한계를 느끼고 끝난다. ‘뇌와 마음과 생각’으로 하면 온종일, 한 달, 1년씩 느낀다.

3.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가 부르듯이, <육적 사랑>은 한계를 느끼고 바로 기쁨이 끝난다. ‘뇌 사랑, 마음 사랑, 영 사랑’은 끝도 없이 느끼고 그 기쁨도 오래간다.

4. 비유컨대 ‘육’이 옷을 벗고 사는 것은 하루는 할 수 있지만 계속은 못 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매일 온종일 벗고 다닐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랑>도 ‘마음과 생각’으로 하면 오래간다.

5. ‘육’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을 못 느낀다. ‘육’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도 가야 사랑을 느낀다.

6. <기도>도 ‘육’으로만 하면 오래 못 한다. 육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 생각, 정신’으로 기도하면, 온종일 할 수 있다. 육같이 제재를 안 받기 때문이다.

7. <찬양>도 ‘육’으로만 하면 오래 못 한다. 육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아서 오래 못 한다. ‘마음, 생각, 정신’으로 하면 종일 매일 할 수 있다.

8.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육’을 가지고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감동이 오느냐. ‘마음과 생각’이 같이 따라가야 감동이 오고, 느낌이 오고, 깨닫게 된다.

9. <주와 대화>도 ‘육’으로 하면 순간이다. 온종일은 못 한다. ‘마음과 생각’으로 하면 온종일 부르며 대화할 수 있다.

10. <성자와 성령과의 대화>도 그러하다. 성자와 성령님의 본체를 만나서 대화하려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육’은 생활도 하고 먹기도 해야 하니 오래는 못 한다. 하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하면 온종일 부르며 대화할 수 있다.

11. 영계의 영들끼리도 서로 만나 이야기하려면, 서로 바쁘니 오랜 시간을 못 낸다. 그래서 서로 ‘마음’으로 통하며 온종일 이야기한다.

12. 항상 보면 직접 만나서 통하기도 하지만, ‘뇌, 마음, 생각’으로 통하기도 한다. 그러면 온종일 통하고 기쁘고 즐겁다.

13. <마음, 정신, 생각>은 끝이 없다. ‘육’에 속해 있으나, 육 앞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14. <혼체>는 ‘마음, 정신, 생각의 실존체’다. 고로 ‘마음먹고 생각한 것’이 <혼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혼체>가 행한다. 혼체는 피곤해하지도 않고, 한계도 없고, 모든 것을 초월한다. 고로 사랑도, 기쁨도 ‘육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낀다.

15. <육신>도 연구하고 써먹는 만큼 쓸 수 있듯이, <혼>도 배우고 연구하고 써먹는 만큼 사용하며 산다.

16. <살>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자기 손바닥>이 거칠면 거칠게 느껴진다. <손바닥>도 같이 부드러워야 <부드러운 살>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무리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 주고 도와주셔도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만 느낀다.
17. 남자와 여자도 그러하다. 한쪽이 아무리 좋게 '사랑'으로 대해도 다른 한쪽이 거칠게 대하면 거칠게 느낀다.
18. 거친 발바닥을 어린아이의 살에 대 보아라. 거칠게 느껴진다. '자기 마음과 행실'을 닮은 대로 '상대'가 느껴진다.
19.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손이나 살을 만지며 "너도 보기보다 살이 거칠구나." 한다. 거친 손바닥으로 만지니, 상대의 살도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다. - '마음이 거친 자'는 '부드러운 사람'도 거칠게 느끼고 대한다.
20. 미련한 자는 상대도 미련하게 본다. 이와 같이 '구시대 종교인들'은 자신이 퇴폐한 대로 '새 시대 종교인들'을 보고 생각한다.
21. 교만한 자는 상대도 교만하게 보고, 겸손한 자는 상대도 겸손하게 본다.
22. <살>도 부드럽고 <손>도 부드러워야 만져도 제대로 느낀다. <상대>도 온전하고 <자기>도 온전해야 온전함을 느낀다.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2.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인간이 이 땅에서 삼위일체를 최고로 사랑하여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땅에서 육으로도, 천국에서 영으로도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137억 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역사를 펴 오셨고, 그 터전 위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역사를 펴 오셨고, 그 터전 위에 마지막 성약 1000년 역사를 시작하셨다.
4.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지음을 받은 인간 중'에서 해야 된다.
5.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 주는 자가 지상에서 최고로 큰 자다.
6. <인간의 최고 목적>도 이루어 주기 어려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크겠느냐. 고로 그 목적을 이루어 주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시겠느냐.
7.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면 첫째, '신부 시대'가 와야 된다. 둘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러려면, 땅에서 그 말씀을 받을 자격자가 조건을 세워야 된다. 셋째, 그 말씀을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깨닫고 행해야 된다.
8.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안 해 주신다. 땅에서 조건이 되는 자를 '시대 구원자'로 택하여 해 주신다.
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말씀, 시대 말씀을 받을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아야 <삼위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에 <삼위일체>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
10. 신약 때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고 어정쩡하게 알면 절대 안 된다.
11. 어정쩡하게, 어설픈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12. <성령>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하며,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해 보고, 성령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13. <성자>에 대해서도 ‘여인을 쓰고 난 예수다. 예수가 삼위일체의 절대신이다.’ 하고 어설프게 알면, 성자는 <시대 말씀>을 안 주신다.
14. 이 시대 구원과 휴거의 말씀, 신부 말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말씀을 받은 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자다.
15. <신약 복음>은 ‘신약 주관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며, ‘그들을 구원하는 데 해당되는 말씀’이다.
16. <구약의 엄한 율법 말씀>은 ‘구약인들’에게 필요했다.
17. 지금은 <성약의 때>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필요하다.
18. 이 시대 구원자는 ‘절대신 삼위일체’를 100% 제대로 깨달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달았고, 삼위일체 앞에 ‘절대 사랑의 조건’을 세웠고, 그로 인해 <이 시대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역사를 펴셨다는 것을 100% 깨닫고 <완전한 휴거의 인봉>을 뗐다.
19.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 시대 말씀>을 전했더니 차원이 다르게 삼위일체를 사랑하여 결국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들’이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대상들’이 되었다. 결국 ‘휴거의 영’이 되게 했고, 천국 최고의 세계이며 삼위일체가 사시는 <황금성>을 차지하게 해 주었다. 그리함으로 삼위일체가 137억 년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며 역사해 온 목적>을 이루어 드렸다. 삼위일체께서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통해 행하셨다.
20. 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 주는 데도 평생이 걸린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창조 137억 년이 걸렸고, 구원역사 6000년이 걸렸다. 또한 시대 구원자가 태어난 이후로 70년 걸렸고, 성약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37년 걸렸다.
21. 시대 구원자는 일생 동안 ‘오직 한 가지 일’을 해 왔다.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곧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를 만드는 일>이다.
22. <그 시대>에는 ‘그 시대 복음’이 필요하다.
23. <이 시대>에는 ‘이 시대 복음’이 필요하다.
24. 이 시대 성약역사로 와서 주를 믿고 따른 자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시대 복음’을 들었다. 배웠으니 전해라. 알았으니 전해라.
25. <이 시대 성약 복음>은 삼위일체가 137억 년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펼치신 터전 위에 선포된 ‘지구 역사상 최고의 말씀’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평생 한이 된다.
26. 올해는 <전도의 해>다. 내년은 <전도의 해>가 아니다. 올해가 ‘전도할 기회’다. 기회가 지나가면 전도하기 힘들다.
27. 아기를 낳을 때 아무리 힘이 좋아도 해마다 낳고 또 낳지 못한다. 이와 같이 전도하여 생명을 낳는 것도 그러하다. 올해 전도할 자들을 전도하여 가르치고 기르고 키워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또 전도하는 것이다.
28. <성자>는 올해는 모두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떠나셨고, <성령>도 올해는 모두 전도하라고 세밀히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고, 도우시고, 잔치해 주셨다.

29. <알파절>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나. ‘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날’이다. 의미만 되새기지 말고, 이제 행하자.

30. <성자 승천일, 휴거 날>을 제대로 못 맞아서 한이 된 것은 첫째, <휴거 600~700선>으로 차원 높이며 풀어야 된다. 둘째, 시대 말씀과 주를 증거하며 성령 역사, 사도 역사를 일으키며 풀어야 된다.

31. <휴거>는 ‘모임과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으로 된다.

32. 성령의 역사, 사도의 역사를 일으키며 한을 풀려면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알지 말고 100% 확실히 알아야 된다. <3.16>도 신랑 성자에게 해당되는 ‘승천’만 알고, 신부인 자기들에게 해당되는 ‘휴거’를 모르고 어설프게 알았기에 그 날을 제대로 맞지 못하여 한이 되었다. 무엇을 100% 확실히 알아야 되는지 <2015년 알파절 복음>을 통해 확실히 말해 주며 ‘기회’를 주었다.

<2015년 6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화면을 보면서> (성령) 나 성령은 허공에 떠서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상대체, 표상자’를 택하여 그 육신의 얼굴과 몸을 보이며 그 육신을 쓰고 행한다. 그때 실감 난다.

2. 성령님은 천모로서 자상하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섬세하시다. 그리고 세밀히 가르쳐 주신다.

3.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말씀’이다.

4. 성령님은 갈수록 빛이 나신다.

5. 인간의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늙는다.

6. 성령님은 땅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룰수록 더욱 빛나신다.

7. 천국도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수록 더욱 발달되고 이상세계로 변화되고 좋아진다.

8. 성령님과 ‘생각과 행위’가 같아야 같이 살 수 있다.

9. 나이가 어려도 ‘생각과 행위’가 성령님과 같으면, 성령님은 ‘같은 몸’으로 보시고 늘 동행하며 같이 살아 주신다.

10. 집을 비워 주듯 ‘자기 마음’을 비우고 성령님께 ‘자기 육신’을 내드려야 성령님이 거하신다.

11. 성령님과 늘 ‘생각과 행위’가 일체 되게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합당하도록 늘 기도하며 행해라.

12. 삼위일체는 ‘육신’이 없으니, ‘마음’을 비우고 ‘육신’을 내주는 자를 그리도 좋아하시고, 그 ‘마음과 몸’을 쓰고 역사하신다.

13. 하나님은 ‘모세의 육신’을 쓰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다. 또한 ‘여호수아의 육신’을 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다. - 인간을 쓰되 ‘대표’를 쓰고 행하신다.

14. 삼위일체는 일하실 때나 행하실 때 ‘육신’을 쓰고 일하시며 행하신다.

15. 삼위일체가 주신 사명을 할지라도 그 일에만 빠져 행하면, 삼위일체와 떨어져 사는 것이 된다. 늘 교통이다. 대화다.

16. 남자와 여자도 서로 ‘육신’을 상대에게 내줘야 사랑하게 된다. 성령의 상대가 되는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몸’을 성령님께 내드려야 성령님이 뜻대로 쓰신다.
17. 자기 마음과 몸을 누구에게 내주느냐에 따라서 그의 몸이 된다. 사탄에게 내주면 사탄의 몸이 되고, 이성에게 내주면 이성의 몸이 되고, 성령님께 내주면 성령님의 몸이 된다. (성령) 나 성령은 허공에 떠서 역사하지 않는다. ‘성령의 상대체, 표상자’를 택하여 그 육신의 얼굴과 몸을 보이며 그 육신을 쓰고 행한다. 그때 실감 난다.
18. 성령님은 못 본다. 고로 ‘육신’을 쓰고 나타나셔야만 그 모습을 보게 되니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19. 성령님은 ‘육신’을 통해서 ‘육 있는 시대 신부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신다.
20. 성령님은 ‘그 시대의 핵심이며 중심’인 <섭리역사>에서 ‘상징체’를 택하고 뽑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21. 성령님은 여신이다. 고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여자 중에서 대상체’를 택하신다. - 그 사람은 ‘택한 자’로서 삼위일체와 시대 주 앞에 사랑의 조건을 세운 자이며, 삼위일체와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하여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가 ‘주 앞에 세워진 신부들 중의 대표, 표상’이 되어 ‘성령님의 몸’이 된다. 그 사람이 ‘육으로 보이는 성령’이다. 성령님은 그 ‘상징체, 대표’를 쓰고 중심을 이루며 역사하시면서 시대의 모든 자들을 ‘대상체’로 만드는 일을 하신다.
22. <표상>은 많은 자들 중에서 ‘시대, 때, 나이’등 만사의 모든 것이 맞는 자다. 삼위일체는 그 사람을 택해서 키우신다.
23. 지구와 달이 맞듯이, 하나님의 시대 뜻과 사명자도 맞아야 된다.
24. 지금 이 시대 역사는 <성약의 에덴동산 역사>로서 ‘하와 복직 역사’다. 고로 ‘여자 중에서도 표상’을 둔다. 이는 절대 ‘사랑이 복직된 자’라야 된다.
25. <주체> - 시대 대표, <대상> - 신부 대표다.
26. <주체>는 삼위일체가 이 시대 전체에서 뽑은 ‘시대 대표, 시대 구원자’이며, <대상>은 주 앞에 세워진 ‘신부들 중의 대표, 성령의 상징체’다. - 이 둘이 ‘천주 앞에 두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 그로 인해 역사는 승리했다.
27.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타락하여 깨졌다. 고로 하나님은 예수님 때 ‘후 아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으나, 그 시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못 했다. 결국 <성약 때> ‘하늘 편, 아담 편 성자 분체’가 조건을 세워서 창조 목적을 이루었고, ‘세상 쪽 신부 편, 하와 편에서도 택한 자’가 절대 조건을 세워서 ‘하늘 아담 편 성자 분체’와 일체 되어 행함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성자는 ‘표상’을 통해 뜻을 펴,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28. 남자와 여자가 일체 되어 생명 역사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역사>에서도 ‘하늘 편, 아담 편 성자 분체’도 조건을 세워야 하고 ‘세상 편 신부 쪽’에서도 과거에 못 세운 조건을 절대 세우고 ‘아담 편의 조건을 세운 성자 분체’와 일체 되어 또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리함으로 <신앙의 신부 역사>가 일어난다. <성자>는 ‘하늘 아담 편 성자 분체의 육신’을 쓰고 행하여 휴거되어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고, <성령>은 ‘세상 신부 편 성령 상징체의 육신’을 쓰고 행하여 휴거되어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한다.
29. 신랑 편은 ‘머리’가 되고, 신부 편 표상은 ‘몸’이 되어 둘이 하나가 돼야만, 이 시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 목적 대상이 된다.
30. <표상>은 타고나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택하고 길러야 된다. 때에 맞춰 태어나고 성장해야 된다.

<2015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좋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해 주면 최고로 좋아한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나도 그러하다.” 하며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나 여호와가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셨다.
2.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육적 사랑’만 사랑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사랑이듯, 나 여호와도 ‘나의 때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 말씀하셨다.
3.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호흡’과 같다. <들이마시는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내쉬는 호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다. 숨을 내쉬는 책임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책임분담이다.
4.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도 사람들은 <내쉬는 사랑의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주면서 살아간다.
5. 모르는 자는 못 다스린다.
6. 생명이 이성애 빠져 사는데도 지도자가 모르니, 생명을 다스리겠느냐. 오히려 그 말을 믿고 속고 있다. 고로 이끌고 와야 할 지도자인데, 알 때까지 끌려간다.
7. 주를 중심해라. 너희는 머리가 아니다. 몸이다. 주가 말한 것을 100% 믿어라.
8. 자기가 ‘머리’가 되면, 속는다.
9.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10. 따라오는 생명들이 따라올 때 <말씀>을 확실히 전해 주며 만들어라. 그 후에는 뇌가 굳어져서 말을 안 들으니, 못 만든다.
11.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라.
12. 생명을 가까이 기르다가 멀리하면, 소외감을 가지고 나간다.
13. 가까이 키우려면 그 생명이 완전해질 때까지 가까이 대해 주고,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가까이 키우지 말아라.
14. 돈으로 키운 자는 돈을 안 주면 안 따라가듯이, 잘해 줘서 잘하는 자는 못해 주면 안 한다.
15. 생명을 분위기로 끌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순간 임시로 있는 나라가 아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야 간다.
16. 분위기는 ‘하늘 주관권에 들어오기 위한 전초’에 불과하다. 심정으로, 말씀으로 가르쳐라.
17. 사람을 너무 가까이 대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접붙여라.
18. 사람은 신이 아니다. 고로 한때 순간은 잘해 줄 수 있지만, 밤낮 지속적으로는 잘해 주지 못한다.
19. 지도자나 관리자가 잘해 주면, 그 생명의 마음속에 ‘인성’이 들어간다.

20. 신앙의 지도자들은 ‘말씀’을 완벽하게 넣어 주어라. 주와 일체 되게 해 주어라.
21. 느낌이 오면 그것을 믿고 100% 확인해라. <느낌, 직감>이 성령의 말씀이다.
22. 모르는 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자다.
23. 이성 범죄를 속이는 자들을 믿지 말아라. 믿는 만큼 속인다.
24. 지난날 이성 범죄 저지른 자들에게 그리도 속았는데, 또 속고 있느냐.
25. 죄를 지은 자가 말한 것을 100% 믿지 말아라. 죄를 짓고서 네게 고하겠느냐. 자기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
26. 교역자가 실력이 부족하고 자꾸 속으면, 합당한 계시자들을 데려다가 생명들을 파악하고 면담하는 데 써라. 그러면 낫지 않느냐.
27. 그 면의 전문가를 써라.
28. 세상에서도 혼자서 다 하는 사람은 없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쓰신다.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주도 혼자서는 안 된다.

<2015년 6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29. 자기의식, 자기 의지, 자기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
30. 가령 “저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 하는 인식이 생기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계시하시고 온전한 것을 보여 주셔도 자기 인식 때문에 안 믿는다.
31. 가령 “저 사람은 이성 문제는 없어.” 하는 인식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도 자기 인식이 있기에 안 믿는다.
32. <자기 인식>으로 인해 자기도 같이 끼어 들어간다. 그 생명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생명이 실컷 속이고 나간 후에야 자기 인식 때문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는 그제야 억울해하며 분히 여긴다.
33. 미리 알았으면, 생명을 잡았을 것이다. 몰라서 생명을 놓친 것이다.
34. 혼자 보면 다 못 본다. 같이 보아라.
35. 그러나 지도자나 교역자가 누가 옆에서 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는 티를 내면, 부담이 되어서 무엇을 알아도 말해 주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항상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사방을 살피라.
36. 지도자라도 동서남북 중에서 한 곳밖에 못 본다. 나머지는 못 봐서 캄캄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본다.
37. 한 시간에 ‘네 곳’을 가야 된다 하자. 자기는 그 시간에 ‘한 곳’밖에 못 간다. 그렇다면 ‘나머지 세 곳’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가게 해라.
38. 지도자들이 혼자서 다 하다가 생명을 놓치고, 할 일을 못 하고 실패한다.
39. 지도자들은 이 잠언 계시를 명심하고, 벽에 써서 붙여 놓고 행해라.

40.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고로 ‘현장’에서 잘 파악하고 ‘현장’에서 해결해야 된다.

41. 주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다. 자기 인식을 중심으로 하고 행한다. 이는 습관이다. 그러니 그 틈으로 문제가 생긴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42. 선생 방에 작은 개미가 들어왔다. 그래서 ‘큰 구멍’을 다 막아 놔다. 그런데도 또 들어와서 이해가 안 됐다. 알고 보니 개미는 ‘큰 구멍’으로는 전혀 다니지 않았다.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작은 구멍, 명주실보다도 더 가는 곳으로 다녔다. 이것을 이틀 만에 찾았다. 그래서 그곳을 치약으로 메꾸니, 그제야 개미가 안 들어왔다. 이성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하는 쪽’으로 다니며 행한다.

43. <이성의 길>도 ‘큰길’이 아니다.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큰길, 큰 구멍’으로 안 다닌다. 마치 개미가 다니듯 ‘실같이 가늘게 갈라진 곳, 눈에 보이지도 않게 가느다란 길’로 다닌다. 이성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뿐 아니라 사기꾼도 그러하다. 깨닫고 알아라.

44. 이성 범죄자들은 ‘큰 구멍’으로 안 나온다. 그렇게 미련하게 행하겠느냐. 숨어 다니는 자가 ‘큰길’로 다니겠느냐. ‘골목길’로도 안 다닌다. ‘쓰레기를 끌고 다니는 것’에 매달려서 다닌다. 꼭 깨달아라.

45. 대개 자기 교인, 자기가 관리하는 자는 믿는다. 잘 파악해라. 죄가 있는데도 담대하게 행하는 이유는 의에 담대하게 행해야 자기 죄를 숨기기 때문이다. - 사탄은 완벽하게 속인다. 영의 눈을 떠라. 혼으로 보여 달라고 해라.

46. 이 모든 잠언을 잊으면 죽는다.

<2015년 6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핵>을 가지고 돌아간다. 핵을 뺏어라. 핵만 하면 된다.

2. <왕>이 세워야 더 가치가 있다. <왕>이 해야 더 가치가 있다 함이다.

3. 가령 ‘돌’을 한 장소에 세운다 하자.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 돌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왕>이 세워야 더 가치가 있다.

4. 그때마다 ‘왕이 지정한 자’가 해야 더 크고, 사연이 있고, 가치가 있다.

5. 못 깨달으니 깨닫고 제대로 하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하시고 사명을 준 자’가 해야 계속해서 역사하신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뜻이 아니니 헛어 버리신다.

6. 하나님과 성자는 ‘자신의 육신으로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다른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신다. 고로 토기장이가 잘못된 질그릇을 깨부수듯 다 깨부수신다.

7. <이 시대 구원자>는 삼위일체께 ‘사명’을 받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단의 그릇된 교리와 기성의 교리를 다 깨부순다. 그리고 온전한 말씀을 준다.

8. 그가 <말씀의 철창 권세>를 가지고, 성경의 그릇된 해석과 교리를 질그릇같이 깨부수고 ‘온전한 금 항아리’를 만든다.

9. 하나님과 성자에게 ‘구원의 사명’을 받고 ‘시대 말씀’을 가지고 온 자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전하는 말씀들은 모두 ‘질그릇’과 같다.

10. 세상의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전할 때 ‘시대’에 안 맞게 전하면, 모두 다 ‘그릇된 말’이 되어 심판을 받고 몸의 눈같이 사라진다.
11.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면, 그릇된 진리와 함께 망한다. 결국 그 영이 사망으로, 지옥으로 간다.
12. 사명을 맡은 자에게 교육을 시키기다. 그리고 행하게 해 주기다.
13. 성공할 자인데 많이 실패한다. 이는 교육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14. 매일 할 일을 하는 자는 매일 성공하는 자다.
15. 생활의 병이다. 몸의 병이다.
16. 행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든다.
17. 상대가 제대로 모르고 행한 것은 행해도 만족하지 못하다. - 고로 깨우치고, 성장한 후에 행하게 해야 된다.
18. 하나님도 가치를 제대로 알고 성장할 때까지 두신다. 과수원지기가 과일이 익어야 따듯이, 농부가 곡식이 익어야 거두듯이 한다.
19. 구시대 기성이든, 새 시대엔 ‘성장이 안 된 자’는 성장된 자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는다.
20. 나이를 먹어도, 시대가 가도 ‘그 시대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생긴 대로 살다가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이 사막의 바람처럼 무자비하고 쉴 날이 없다. - ‘하나님이 보낸 자의 권고’를 듣지 않은 연고다.
21. <화면을 보면서> 자기 주관, 자기 방법으로는 <현실>에서는 잘되고 좋다. 그러나 가다 보면 길이 막힌다. 가다가 막히면 거기서 살아야 된다. / 그래서 ‘하늘의 권고’를 받고 감사하면서 고생되더라도 그 길로 가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가라는 것이다.
22. 기성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새 시대 새 역사>가 왔으나, 기성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권고했어도 거의 외면했다. 역사를 보면 거의 다 그러했다. 고로 그 ‘막힌 위치’에서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권고하신 말씀을 듣고 새롭게 새 길로 간 자들만 얻고, 구원자와 함께 이 세상에서도 영계에서도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23. <구약 주관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도 구약 종 주관권으로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간다. <신약 주관권>으로 삼위일체를 믿고 살면, ‘영’도 신약 자녀 주관권으로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간다. <성약 주관권>으로 삼위일체를 믿고 살면, ‘영’도 성약 신부 주관권으로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24. <성약 주관권>으로 온 자들도 차원대로 나뉜다. ‘같은 역사’에서 ‘같은 주’를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자기 차원’대로 행하며 천층만층, 천차만별로 살아간다.
25. 새 역사에 못 온 자는 전혀 모르고 산다. 어서 그 위치의 삶을 떠나라. 어서 그 위치의 삶을 떠나 막히지 않은 희망의 길로 오도록 시대를 증거하자.
26. <새 시대에 사는 자>는 구시대를 거쳐 왔기에 구시대의 꼴이 어떠한지 잘 안다. 그러나 <구시대에 사는 자>는 새 시대의 삶을 안 살아 봤기에 새 시대의 삶을 전혀 모른다.
27. <고욤나무, 돌감나무>에서 ‘참감’이 열리겠느냐. 이와 같이 <구시대>에서는 아무리 차원 높여 살아도 ‘새 시대의

삶'은 못 산다.

28.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만 알고 기뻐하고 살아간다.

29. 병든 자가 누워서 의식을 잃고 살아가면, 건강한 자들이 얼마나 얻고 누리며 사는지 모른다.

30. 자기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왔어도 '자기 가진 것'을 못 버리니 못 따라온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빈 몸으로 따라오니 쉽게 따라온다.

31. 제일 고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 곧 '<새 시대 섭리역사>에 왔다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안 하다가 곤고함을 느끼고 더 좋은 길을 찾아 떠났지만, 없으니 찾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나 이미 <새 역사>로 돌아올 수 없는 운명으로 바뀌어, 그로 인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연속된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 고통을 받는다. - <육>이 죽어도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2015년 6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루시퍼'가 삼위일체에 대해 악평하고 악한 것들을 가르쳐서, 모두 '루시퍼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그릇된 사고가 머리에서 사라지라고 <지옥>에 넣고 태운다.

2. 사람들도 그러하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악평하고, 보낸 자를 악평하고, 따르는 자들을 악평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그릇된 사고'가 사라지라고 그들에게 갖은 고통을 주어 뜨거운 불에 태우신다. 그들에게 '복직'은 없다. 왜 복직이 없을까? 태워서 '재'가 됐으니, 그때부터는 '재'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로 태우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3. 악평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때까지 악하게 행한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3년 6개월 동안 줬으나 회개하지 않으니, '삼위일체와 하늘의 권세자'는 심판하여, 그들의 영을 사망에 넣고 태운다. 그 후에는 그들을 복직시킬 자가 없다.

4. 심판 때는 '삼위일체와 땅의 대표 구원자'가 결정하여 심판하니, 하늘에서도 지구 세상에서도 그들을 다시 복직시킬 자가 없다.

5. 과일이 썩으면 버리듯이, 사람도 정신과 생각과 행실과 신앙이 아예 썩었으면 버린다. 썩어서 버렸으니 아예 미련이 없고, 기분이 나쁘니 뇌에서 짝 지워 버린다. 그 생각이 안 지워질 때는 '더 좋은 자, 후자'를 생각하고, '버린 자가 신앙의 병이 들어 야비하고 거짓되게 행한 것들'을 생각하며 정말 잘 버렸다고 생각한다.

6. <선과 의>를 보고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악과 불의>만 보이니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된다.

7.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 모순투성이다. 하나님과 성자와 주가 그 모순을 안 보고 계속 잡아 줘도, 때가 됐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니 결국 손을 놓게 된다.

8. 야비하고, 욕적이고, 기회주의자, 게으르고, 형식으로 하고, 좋으면 따르고 고생되면 남의 공적에 기대어 먹고 살고, 나쁜 근성과 습관을 버리지 않으니 '전능자의 눈'에서 벗어난다.

9.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해라. 그러면 약해도 병들어도 전능자는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니, 삼위일체도 구원자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는 것이다. 자기가 자신을 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10. 사람이 '좋은 곳'에 가도 한 때뿐이다. 때가 지나면, '그 좋았던 곳'도 다른 세계로 뒤바뀐다. 그러나 '좋은 곳'이 아닌 '나쁜 곳'으로 갔으니, 그 마음과 행위가 어떠하겠느냐.

11. 전능자 하나님은 일점일획이라도 틀린 것은 안 받으신다. 그러나 다 틀렸으니 받으시겠느냐.

12. 지구의 시간은 날아간다. 지구가 자기 궤도를 80바퀴 돌면, 인생들은 어느 누구나 늙어서 ‘죽는 날’을 맞게 되어, ‘자기가 묻힐 무덤’을 보고 가기 바쁘다.

13. 그렇게도 선생을 핍박하고 반대하던 자들이 ‘살 날이 1년도 안 남았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으니, 그제야 선생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죽기 전에 편지한다고 하며 편지를 보내왔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 말로만 듣던 지옥, 너무 뜨거워서 영의 살이 타고 영의 뼈가 녹는 곳,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곳에 안 가게 해 달라고 했다. 꿈에 보니, 선생이 ‘영’을 구원해 주는데 ‘그 육’이 간구하고 애원하는 자만 구해 주는 것을 봤다고 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영이 떨리고 육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때가 닥치니, 교만하여 악평하고 반대하고 선생이 보기 싫어 육하던 것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간구했다. 용서하되,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공적을 쌓을 시간>이 없다. 다만 <사망>으로 안 가고, 그 차원대로 <생명길 쪽>으로 가도록 잡아 줄 수밖에 없었다. <육계>에서도 ‘육’이 행한 대로 받고, <영계>에서도 ‘영’이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절대 공의의 법이다.

14. 주를 알고 제대로 믿고 사는 자가 매일 복을 받고 사는 자다.

15. <영의 세계>를 알아라. 아는 것은 쉽다. 이 세상에서도 <육>이 ‘육의 행위’대로 살듯이, <영>도 ‘육의 행위’대로 다 받고 산다. <육>은 ‘지상’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살다가 죽지만, <영>은 악하거나 불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영이 없으니, ‘악하고 불의한 그 육의 행위’대로 그 세계에 가서 고통 받으며 산다.

16. <육>을 보면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안 믿는 자, 믿는 자’가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영계에 가서 <영>을 보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전능자 하나님은 ‘불의한 자, 의로운 자’,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안 믿는 자, 믿는 자’를 쪼개어 저울에 달고 구분하신다. 그리고 각각 전혀 다른 주관권으로 쪼개신다.

17. 영계에서 <낮은 차원의 영계>는 ‘하나의 지옥’과 같다. 거기서 복직하고 <천국 쪽>으로 못 가면, 때가 되면 거의 <지옥>으로 간다.

18. 지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 때가 영을 구원하기 최고로 좋은 때다.

19. <지상에서 육을 가지고 영을 구원하는 것>은 10~20대같이 나이가 어리니 모든 것이 유리하듯 하다. <육이 죽고 영계에서 영을 가지고 영을 구원하는 것>은 30, 40, 50, 60대가 되면 이미 뇌와 몸이 굳어 때가 지나서 무엇을 시작하기 어렵듯이 어렵다.

20. <때>를 놓치면, 어둔 밤에 두견새만 슬피 울고 부엉이와 올빼미만 외롭게 울듯 운다. 자기를 위로하느라 울 뿐이다.

21. <때>를 놓치고 억울하게 한이 맺혀서 살지 말고, 선생같이 몸부림치고 일찍 일어나 제때 행해라. 지금 이때 어서 부지런히 행해라. 지금은 새벽 1시다. 지금 잠언을 쓴다. 피곤함이 어디 있겠느냐. 깨달으니 <정신>이 가을 하늘의 별 같이 총명하고, <몸>은 가벼워서 난다. 안 하면 <몸>이 무겁고, <마음과 생각>이 녹슬어서 새끼줄로 매어 끌고 가야 된다.

<2015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구원자>는 ‘삼위일체의 육’이니, 그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눈으로 보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다.

2. 성자가 떠나셨어도 ‘구원자의 육’이 있으니, 성자와 같이 사는 것이다. 성령님과 하나님과도 같이 사는 것이다.

3. 성자는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셨다. 고로 약속대로 <혼인 잔치>를 하려고, ‘신부로 준비된 영들’을 휴거시켜 천국

에 데리고 가셨다. 그래도 성자는 전능자시라 ‘남기고 간 성자의 육’을 통해서 계속 <휴거 역사>를 펴신다. ‘구원자의 육신이 살아 있는 기간’이 <휴거 기간>이다.

4. <구원자의 육이 살아 있는 기간>에만 휴거된다. 이는 삼위일체가 그 육신과 살기 때문이다. 구원자의 육신이 죽으면, 삼위일체가 그 육신을 쓰고서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 후대에는 같이 살지 않고 역사만 하신다.

5. 남녀가 같이 살다가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역사의 당세>에 ‘삼위일체의 육’이며 ‘보이는 성자 격’인 ‘시대 구원자의 육신’이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면, 남자가 죽고 여자만 남아 있는 격이 된다. 고로 <휴거 역사>는 못 하고, <1000년 성약역사>만 펴 나간다. 삼위일체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실 때, 곧 구원자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만 <휴거 역사>를 편다.

6. 성자의 육이 죽은 후에는 <성약 신부급 구원역사>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

7. <휴거 기간>은 삼위일체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땅에서 신부들과 같이 사는 기간이다. 그와 같이 산 자들의 영만 ‘휴거의 영’이 되어 <황금성>에 가서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8. <성약역사의 당세>는 ‘구원자의 육신이 살아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역사를 펴신다. 고로 이 기간에는 실상 ‘삼위일체’를 ‘육’으로 보고 사는 격이다.

9.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고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셨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 역사를 펴야 하니, ‘이 시대 구원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10. 항상 <영과 혼>은 ‘육신’을 쓰고 살아가듯이, <삼위일체>는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살아가신다. 고로 ‘그의 육’을 본 자는 ‘삼위일체’를 본 것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이렇게 해야 볼 수 있지, 그냥은 못 본다.

11. ‘보냄을 받은 자’를 본 것은 ‘보낸 자’를 본 것이다.

12. ‘보냄을 받은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낸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적으로 아는 것>은 너무 보편적이다. 이는 사람의 IQ 100~150의 생각에서 깨닫기 때문이다.

2.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그 차원이 매우 높다. 영이 그 실상을 보고 깨닫기 때문이다.

3. 몰라서 좋아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4. 두려움, 공포, 사망의 권세가 마음에 와 닿으니, 서로 괜찮다고 위로하고 노래하며 간다. 그 역시 무지로 괜찮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원히 괜찮지 않다.

5. 지옥에 가 보면, 과거에 인생을 기쁘게 즐기며 산 것밖에 없는데 지옥에 간 영들이 많다. 그들은 자기는 특별한 죄도 없는데 왜 지옥에 왔냐고 하며 괴로워하고 억울해한다. ‘과거에 자기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의 행위’로 인해 그 영이 지옥에 간 것이다.

6. <육이 세상에서 살 때의 자기 행위>를 가지고 그 영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

7. 영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그 원인은 ‘자기 육신의 행위’다.

8. <자기 육의 생각과 행위>로 인해 그 영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

9. 사람은 모르고 행하여 고생하고, 고통 받고, 망한다. 고로 배워라. 알아라. 그러면 '무지'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10. '차원을 높이기, 강도를 강하게 하기'는 <생각>에서 좌우된다.
11. <생각>을 강하게 하면, 차원이 높아지고 강해진다.
12. <생각>이 하나님과 일체 될 때, 차원이 높아지고 강해진다.
13. <생각>과 <하늘을 향한 사랑>을 강하게 할 때, 자기 영도 혼도 순간 자기가 생각했던 영계, 천국에 가서 다니게 된다.
14. 남녀 사이도 서로 <사랑의 생각>을 강하게 할 때, 사랑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자기 사랑>을 강하게 삼위일체를 향하게 하여 화살이 날아가게 하듯 하면, 그때 삼위와 일체 되어 '삼위의 사랑'을 느끼고, '천국'이나 '지옥'도 가서 구경하게 된다.
15. 왜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인생들을 직접 관리하시고 키우시나요? 인간의 욕을 통해 그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아서 영원히 같이 살려면, 욕도 혼도 영도 정들게 키우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삼위의 정성과 사랑'이 가서 '기른 정'으로 영원히 정들어 살게 된다.
16. 왜 천사들을 데리고 사랑의 세계를 이루지 않나요? 천사들과 하늘나라의 영들은 '삼위와 혈통적인 관계'다. 사랑의 세계는 '상대 세계의 상대체'와 일체 되어 이루는 것이다. <삼위의 상대체>는 '욕을 통해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17. 땅을 사서 작품을 만들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다 최고 작품을 만들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상대적인 땅'을 희망으로 사서 거기에다 최고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
18.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늘나라의 상대적인 땅,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희망으로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여 기르시고, 인간이 삼위의 정신과 생각으로 크게 하셨다.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세워, 그를 통해 인간의 욕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셨다. <욕>이 변화됨에 따라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졌다.
19. 자기로 인한 기쁨과 희망도 있지만, <상대체>를 만들고 투자하고 가르치고 길러서 같이 뜻을 이루는 기쁨과 희망이 더 크고도 크다.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진다.
2.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행한 데'서 온다. 곧 '자기에게 저장된 데'서 온다.
3. '자기가 행한 것'이 없으면 안 해진다.
4. '자기가 행한 것'이 없어서 '저장된 것'이 없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5. 아무리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의 에너지'에서 온다.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6. 성자와의 사랑, 주와의 사랑도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7. <사랑의 에너지의 핵>은 무엇이나, ‘뜨거운 생각’이다.

8. <생각>이 고갈되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9. <육의 에너지의 핵>은 무엇이나, ‘생각’이다.

10. <생각>이 고갈되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11. <생각>을 뺏기면 사랑의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12.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을 세상에, 이성애, 악한 것에 뺏기지 말아라. 네 뇌 속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넣고 살면서 매일 부르고 찾아라. 네 뇌에서 ‘말씀’을 빼지 말아라.

13. <생각>을 다른 데 뺏긴 자는 그 중심에 ‘성자와 주를 사랑하고픈 마음’이 안 생기고, ‘말씀을 행하고픈 마음’이 안 생긴다.

14.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행해 보아라. 그러면 ‘자기가 행한 것’이 있으니 그로 인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15.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지난날을 생각해라. ‘지난날 내가 행한 것’을 생각해라. ‘지난날의 사연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다.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육신>은 ‘물질’에 속해 있기에 연속해서 관리해야 된다.

2. 사람과 동물을 보아라. 먹어도 그때만 배부르지, 소화가 다 되면 금방 배고픔을 느낀다. <육체를 가진 존재물>은 연속해서 먹어 주고, 관리해 주고, 살펴 줘야 된다.

3. 사람은 하루에 보통 3끼를 먹는다. 1년이면 1095번을 먹어야 된다. 간식까지 하면 1500번 정도를 먹어야 되니, 거의 쉬지 않고 먹어 줘야 ‘육신’에 영양분이 들어가서 ‘지체’를 유지한다.

4. 사람은 먹고 일하고 자는 데 하루를 거의 다 쓴다. 고로 <쉬는 시간>이 낙(樂)이다. 하지만 쉴 시간이 별로 없으니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일하여 돈 버는 시간>을 낙으로 삼고 산다. 이러다 보면, 인생이 늙어서 죽어 간다.

5.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육’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살 영’을 창조하셨다. <육>이 먹고 입고 자고 일을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마치 집을 점점 지어 가듯, 태에서 아기가 커 가듯 <자기 영>을 점점 변화시켜 ‘하늘나라 형체’로 완성시키면, <육>으로 잠깐 누리고 살 것이 <영>으로 대체된다. <자기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것>이 ‘육에 속한 혼’을 통해 <자기 영>에게 옮겨 가서, 그때부터는 <영>이 ‘제2의 육’이 되어 영원히 존재하면서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누리며 살게 해 놓으셨다.

6. <영>은 ‘인간의 육체’같이 일을 안 해도 된다. 잠도 필요 없으니 안 자도 된다. <영>은 ‘물질인 육체’가 아니라서 먹고 입고 자고 일하는 것의 지장을 안 받는다.

7. <이 세상의 과일과 식물>은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진다. 하지만 <영의 세계의 과일과 식물>은 영에 속해 있기에 썩지 않는다. 고로 늘 놓고 먹을 수 있다. 영으로 대체됐기에 그러하다.

8. <기름>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하면, 기름을 쓰는 대로 소모하여 없어진다. 그러나 <바람>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면, '바람이 불 때마다 발생된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쓸 수 있다. 고로 돈이 안 든다. 대체했기 때문이다.
9. 선생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는 계속 풀을 메고 일을 해야 곡식이 자라서 먹고 살기에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농사>를 <하늘 일>로 대체해 주셨다. 이제는 농사를 안 지어도 먹고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육의 인생>이 갈수록 늙어서 힘이 없으니, <영>으로 대체해야 영원히 살게 된다.
10. <육체의 사랑>도 <뇌 사랑, 정신적 사랑, 혼적 사랑, 영적 사랑>으로 대체해야 한계를 초월하게 되고 영원하게 된다.
11. <우주선>도 지구 궤도를 벗어난 후부터는 '모선'에서 분리되어 '우주선'으로 대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고로 중력권으로 진입할 때 '모선'에서 '우주선'으로 바꾸어 비행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삶으로 인해 <영>을 변화시켜 <영>으로 대체해야 영원히 간다.
12. 하나님은 <우주 세계>를 운영하실 때도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운석들도, 별들도 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신다. 그래야 우주가 연속으로 존재한다.
13. 구원역사도 <구시대 구약>에서 <새 시대 신약>으로 대체하셨다. <구약>을 그대로 두면 늙어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신약역사>도 2000년 동안 퍼 오다가 <새 역사 성약>으로 대체하셨다.
14. <부모>도 나이가 들어 늙으니 <자녀>로 대체했기에 '다음 세대'가 생기게 되었다.
15. 전도하여 <자기>에서 <새 생명들>로 대체해라. 그래야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역사가 '다음 세대'로 연속해서 펼쳐져 나간다. 그리함으로 자기도 찬란하게 빛난다.
16. <물건>도 다 써서 남아지면 <새것>으로 대체한다. 만사가 그러하다. <타락하여 문제가 된 자>도 <새 사람>으로 대체해 주어라.
17. <자기 인생>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대체하여라. 그래야 연속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18.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은 소모되어 결국 죽어 끝나니 <영>을 창조하시어, <육>이 죽어서 끝나면 <영>으로 대체하여 영원히 살게 하셨다. 고로 구원자를 보내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행하게 함으로 <육>을 통해 <영>을 '하늘나라 형제'로 만들게 하셨다.
19. <자전거>를 타다가 힘들니, 연구하여 <차>로 대체했다. 그리고 공중은 <비행기>로 대체하여 편안히 다니게 했다.
20. <신앙>도 지속하려면, 때마다 연구하여 대체할 것을 대체해야 된다.
21. <농사>도 힘들면, 연구해서 힘이 안 드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22. <길>로 다니다가 힘들면, 연구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된다.
23. <사명>을 하다가 힘든 자들도, 하늘이 원하는 만큼 못 하는 자들도 '새로운 자'로 대체해 줘야 된다.
24. 하나님의 역사도 <구역사>에서 <새 역사>로 대체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 <구역사>는 때가 되면 선다. 고로 성자는 <새 역사>로 갈아타시고 <새 역사, 새 육신>을 쓰고 달리신다.
25. <육>으로 만나려면 멀리 있어서 힘들고 어려우니, <혼>으로 <생각>으로 대체해서 만나야 된다.

26. <생각>이 만나고 <혼>이 만나면 만난 것이다.
27. 성자도 주도 미리 알고 은밀히 대체해 놓는다.
28. 이성으로 세상 사랑으로 타락하는 자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미리 아시고, '다른 자'로 대체하여 기르신다.
29. <핵심자>는 '사랑의 절대자'로 세운다.
30. 하나님은 <구약 종 시대 때>도 '흠 있는 것'은 '전체를 대표한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시며,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31. <전체 대표자>는 '상징'이니, 항상 깨끗해야 된다.
32. <창조 목적의 핵>은 '사랑'이다. 사탄은 핵을 자꾸 깨뜨린다.
33. <핵>은 '흠이 없고 제일 좋은 것'이 돼야 한다.

<2015년 6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벌들에게는 '살충제'가 독약이다. 살충제를 뿌리면 벌들은 못 견디고 다 도망가고 죽는다.
2. 사탄과 악의 세력에게는 '기도'와 '강력한 말씀'이 독약이다. 기도하고 강력하게 말하면, 벌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것 같아서 사탄과 악이 못 견디고 사라진다.
3. <사탄>은 항상 '악'과 함께 역사한다. 항상 <사탄>이 '우리의 적'이다. 고로 기도해라. 그리고 강력하게 말해라. 그러면 벌들과 같이 우리를 쏘는 사탄과 악이 사라진다.
4.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천군들도 '그 조건'으로 심판하시고, 싸워 이기게 해 주신다.
5. 기도하면, 마음·정신·생각이 강철같이 강해지고 담대해져서 사탄도 악도 다 이긴다.
6. 기도를 멈추면 사탄이 악한 자들을 쓰고 몰려온다. 기도하면, <기도>가 '무기'가 되어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날아가 그들을 없애 버린다.
7. <기도>는 '사람을 쏘는 벌들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것'과 같다.
8. 모두 기도해라.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의 적인 '사탄과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다.
9.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쏘려 하는 벌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라. 가만히 두면, 결국 자기를 쏘고 해를 준다. 사탄과 악한 자들도 그러하다. 가만히 두면 100% 우리를 쏜다.
10. 사탄과 악한 자들은 '우리 영역, 섭리사 영역'을 침범하며 해를 준다. 고로 가만히 있지 말고, 살충제를 뿌리듯이 '기도'를 마구 쏘라. 하나님께 공의로 처리해 달라고 강력히 기도하여 없애라.
11. <의인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력한 기도>와 <의인이 전하는 강력한 말씀>이 필요하다.
12. 벌이 쏘려 할 때, 벌에게 "사랑해. 쏘지 마." 해도 전혀 못 알아듣고 쏘 버린다. 고로 벌이 쏘려고 오면 '살충제'를 뿌려 없애는 것만이 답이다.

13. 사탄과 악한 자들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사랑해 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쏘는 것’이다. 고로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면 무조건 ‘악한 말’로 싸 버린다. 그러니 그들을 대할 때는 오직 ‘기도’와 ‘강력한 말’로 공격이다.

14. 성령님은 공의다. 의인의 편이다. 악을 멸하러 오셨다.

15. <자녀>에게 손을 대면 <부모>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듯, <성령님>은 <하늘 신부들>에게 해를 주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대해 주신다.

16.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서 귀한 날이 와도 모른다.

17.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재가 나지 않아 원하는 것이 안 된다.

18. 기도하지 않으면, ‘강력한 영적 힘’을 못 느끼고 못 받는다.

19.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이 없다. 말씀을 들어도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 힘을 못 받는다. 그 영향으로 육적으로도 힘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 자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탄이 조금씩 조금씩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아예 그 생각을 지배해 버린다.

20. 벌이 와서 자기를 쏘려고 하는데도 살충제를 안 뿌리니 100% 쏘여서 고통을 받듯이, 살충제와 같은 <기도>를 하지 않으니 <정신>도 약해지고 <말씀>에도 약해져서 전체적으로 힘을 잃게 된다.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 <기도의 감>을 잃고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고, 점점 <말씀>을 멀리하고 <주>를 멀리하게 된다.

21. 기도하는 데 해이해지면 모든 것이 해이해진다.

22. 전체가 모두 기도,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강력한 기도, 전적인 기도,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까지 기도다.

23. 한 번 깊이, 간절히, 강력히,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기도하여 ‘기도의 불’을 받아 봐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자기 기도를 확신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기도했구나.’ 하고 자기도 확실히 믿고 더욱 기도하게 된다.

24. 음식은 먹어 봐야 맛을 알듯, 기도는 해 봐야 그 위력을 안다.

25. 정말 기도하는 자만 <기도의 위력,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더욱 깊이, 간절히, 강력히, 전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2015년 6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26.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소통과 교통’이다. ‘간절한 대화’이며 ‘간구’다.

27. 1시간 정도 조금 기도하려면 정말 깊이 하고, 2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구체적으로 말하며 간구해야 된다.

28. 세상의 어떤 일을 하는 데도 몇 시간, 며칠, 몇 달의 시간이 들어간다. 어떤 것을 설득하는 데도 진지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들어간다. 큰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러하다.

29. 첫째, <전체>가 모두 같이 기도해야 된다. 수만 명이 기도해야 되는데, 핵심자 혼자서 하려면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섭리사를 말씀으로 지도할 수 없으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30. 둘째, <깊은 기도>다. <깊은 기도>는 ‘간절함’에서 나온다.

31. 셋째, <간절한 기도>다.

32.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줄거나 잡생각을 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절 받지 않으신다. 고로 '기도의 응답'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끝난다.

33.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행하시게 한다.

34. 넷째, <강력한 기도>다.

35. 기도하되 불같이 강력하게 기도해야, 벌들에게 살충제를 충분히 많이 뿌려서 벌들을 아예 없애는 것과 같다.

36. 사탄과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말'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싸서 해를 주고 고통을 준다. 고로 살충제를 마구 쏘듯 강력하게 기도하고 강력하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쏘인다.

37. 강력하게 깊이 기도해라. 그래야 사탄을 물리친다. 그래야 <휴거 300선>부터 차원을 높여 나갈 수 있다.

38.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혼'으로 자기 모습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표가 너무 확연히 난다.

39. 다섯째,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기도해라.

40. 세상에서도 무엇을 할 때 전적으로 해야 그 일이 표가 난다. 집을 다 지을 때까지 짓듯이, 차를 몰고 목적지까지 수백 리를 달리듯이, 공부할 때 빠져서 하듯이, 산을 오를 때 한두 시간을 가야 정상에 다다르듯이, <기도>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해야 된다.

41. 보통으로 기도하면 보통으로만 된다. 전적으로 기도해야 전적으로 된다.

42. 전체가 깊이, 간절히 강력히, 본격적으로, 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다. 이 터전 위에 첫째, 반드시 <사탄을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꺾는 기도>를 확실하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43. 기도할 때 간절히 깊이 하지 않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사탄>도 못 없애고 기도를 끝내면 안 된다.

44. 거의 사탄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니, 누구든지 기도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사탄'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깊이 기도할 수 있다.

45. <기도>로 악한 사탄 마귀를 못 없애면 그로 인해 계속 힘을 뺏기고, 낙심하게 되고, 해를 당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된다.

46. 사탄이 안 보여도 옆에 있다는 것을 절대 믿고, 먼저 사탄을 쫓아내고 기도해야 <깊은 기도>가 된다.

47. 생명들의 문제, 자기를 쏘는 문제, 자기를 쏘는 못된 생각, 자기를 쏘는 어려움, 자기를 쏘는 사탄과 악한 자들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기도'다.

48. 농부가 밭에 난 가시나무를 캐내듯 어떤 문제를 놓고 '사정없이 끝까지' 기도하여 <해결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49.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문제'를 잡고 놔주지 않는다. 고로 살충제를 뿌려 자기를 쏘는 벌을 없애듯 '자기 문제를 잡고 안 놔주고 고통을 주는 사탄'을 기도함으로 썩 없애 버려라.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강력히 간절히 기도해라.

50.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는 그 조건으로 ‘도움’을 받게 된다.

51.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힘들 때가 많다.

52. 기도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휴거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휴거된 영>은 그 전보다 7배나 강해져서 다르다. 고로 휴거된 자들이 합심해서 깊이, 간절히, 강력히, 전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다.

53. <섭리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대표>에게 문제가 생기면 <섭리 전체>에도 영향이 간다.

<2015년 6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기도와 말씀>은 마치 벌들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것같이 사탄과 악인들과 악평자들에게 극약이다.

2. <기도>하고 가서 섭리사를 악평하는 자들과 섭리사를 불신하고 나간 자들과 <말씀>으로 싸워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무기, 말의 무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공의롭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3. 기도하면 생각이 강하게 무장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악인들의 말과 행동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입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해 버리게 된다.

4. 의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악을 대하며 멸하기다. 하나님은 악평자들을 광야에서 살게 놔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5. 기도해야 영력이 일어난다.

6.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보고하는 것이다. 고로 기도를 통해 그 보고를 들으시고, 즉시 행하신다. 악인들은 악한 사탄의 욕으로 쓰여지니, 하나님은 ‘사탄’을 멸하시고 ‘악한 행위’를 멸하신다.

7.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못 이루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 섭리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아예 없어지게 기도해라! 그런 기도를 안 하니 섭리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또 생기는 것이다. 모두 한결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행해 달라고 하여라.

8. 기도를 조금 하다가 말면, 밥 할 때 반쯤 하다가 만 격이다. 끝까지 밥을 하듯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라.

9. 전체가 조금 기도하다가 마니, 사탄 마귀와 악한 자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10. 깊이 기도해라. 응답 받는 기도를 해라.

11. 기도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의 기능과 능력’을 실행했느냐가 문제다.

12. <간절한 기도, 능력의 기도>는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

13. <정한 시간>에 절대 기도하기다. 그때 성자도 성령님도 주도 함께하기 때문이다.

14. 기도하지 않고 편히 살다가, 10배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15. 시험, 어려움, 문제, 핍박, 환난, 악인들의 방해가 없어도 기도하기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살면서 하는 ‘간절한 대화’다.

16. <기도>는 깊이, 간절히, 진실로 해야 된다.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의 과목을 대하듯 기도하거나, 시간을 때우려고 외식과 형식으로 기도하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

17. 육계에서 보면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른다. 영계에 가 보면 정장을 입은 자와 벌거벗은 자가 확 표가 나듯 표가 난다.

18.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종이 울리듯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오는 고통’은 예정되어 있다.

19. 간절히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령의 불’과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애초부터 깊이 간절히 기도한다.

20. 사람들은 노는 데, 먹는 데, 자는 데,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낸다. 그러나 <기도 할 때>는 10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어지고, 20분이 되면 기도를 마친다. 먼저 개인·가정·민족·세계·섭리사를 두고 <기도 내용>을 써 봐라. 그리고 그대로 기도해 봐라. 계속하다 보면 오래 기도하게 된다.

<2015년 6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21. 기도하기 전에 ‘사탄’이 안 보여도, 먼저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꼭 해라. 이것을 안 하고 기도하면, 기도 중간쯤 갔을 때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여 기도가 흐지부지된다.

22. 사탄·귀신·잡념·잡생각을 멸하고, ‘천사’에게 자기를 지켜 달라고 하고 기도해라. 천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 옆에 있다. 그러나 악인들과 악평자들의 옆에는 100% ‘악한 영’이 붙어 있다. 악한 영들이 ‘악인들과 악평자들의 몸’을 자기 것으로 쓴다.

23. <사탄>은 ‘사람들’을 ‘악’으로 꺾어, 그들을 ‘자신의 몸’으로 쓰고 ‘악한 일’을 하게 한다. 사탄은 그들이 악한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치고, 악한 일을 해 줘도 다 쓴 후에는 왜 악한 일을 했냐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10배나 더 큰 고통을 준다. 사탄이 얼마나 야비하게 ‘자신의 몸으로 썼던 악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사탄이 자신의 몸으로 쓰는 자들’을 보고서 알았다.

24. 사탄과 악한 자들은 100% ‘거짓’을 말하고 행한다. 그들이 ‘참말’을 해도 그것은 ‘거짓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25.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잘하여 잘되는 자’를 그리도 시기 질투한다. 고로 방해하려고 ‘악한 자들의 욕신’을 쓰고 억울하게 하여 관청에 신고하고 괴롭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의 100배로 갚아 주시며 공의롭게 처벌하신다. <사탄>은 ‘시기 질투의 영’이다. 고로 하나님은 그 꼴을 안 보시고 진노하며 공의롭게 처리하신다.

26. <목회>를 ‘공무원’이 일하듯 하지 말아라. 그러면 외식자·형식자가 된다. ‘생명을 구해 주는 자’가 돼야 한다. 설교·관리·전도·가르침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듯 해야 된다.

27. 농부가 옥토 밭에서 가시나무를 캐내듯 기어이 기도하여 ‘사탄과 문제’를 캐내서 없애야 된다.

28.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부들에게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을 배치하여 괴롭힌다. 고로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말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쳐라. 절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면, 차로 쥐새끼를 깔아뭉개듯 간단하게 처리된다.

29. 사탄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악’을 빼면 살 수가 없으니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 역시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결코 그 악한 행위대로 받게 되리라.

30.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성약 섭리역사>다. 고로 악인들과 악평자들도 아주 악

질적이다. 사탄도 그들의 악을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다.

31. 벌이 쏘면, 아리고 괴롭다. 벌에게 쏘인 후에 벌을 잡지 말고, 쏘이기 전에 잡아라. 살충제를 뿌리면 벌은 못 건딘다. 벌을 뒤흔들려 잡으려 하느냐. 살충제를 뿌려서 흠뻑 마시게 해라. - 사탄과 악한 자들과 악평자들을 놓고서도 그렇게 기도해라. 말대로 된다.

32. <강철 같은 정신과 행동>이다. 섭리사뿐 아니라 개인·가정·민족·세계·각종 종교·정치·경제·기후·악한 자·사기꾼·폭력배·언론·이성의 썩는 행위를 놓고서 기도해라.

33. 전 세계에 '이성의 죄인들'이 최고로 많다. 그 행위로 인해 심판받을 자들이 45억 명이나 된다. 목욕탕, 사우나, 술집, 안마시술소, 퇴폐업소, 문화 예술 세계, 학교, 종교, 이단 세계 등 '약 300개 종류의 세계'에서 매일 '썩은 이성 행위'를 하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 매일 기도해라.

34. 전도하는 데 힘써라. 생명을 살리는데 힘써라. 진정 시대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야 될 때다.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자는 '주체 사랑 덩어리'이고, 성령님은 '대상 사랑 덩어리'이시다.

2. <사랑>이 '진리'다. <진리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진리'다. - <사랑> 속에 다 들어 있다.

3. 인간이 삼위께 '영광'돌리면, <신>은 사람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영광 받지 않으신다. 남녀가 사랑할 때 사랑을 느끼듯 '영광'을 느끼며 받으신다. 신이 느끼는 것은 인간이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전능자라서 100배, 1000배 더 느낌이 강하다.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도 그러하다.

4. <사랑을 주는 자>가 아무리 사랑해 줘도 <받는 자>가 무디면, 사랑을 받는 자가 느끼는 만큼만 받는다. 자기가 그 만큼만 느끼니,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 줘도 그만큼만 주는 줄 안다. -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다. 고로 우리가 사랑을 주면, 100% 다 느끼고 받으신다.

5. 짝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많이 주는데, 그 사랑을 받는 상대는 못 느낀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직접, 혹은 보낸 자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그리도 사랑을 많이 주신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의식하지 않으니, 각자 생각한 대로 조금만 느낄 뿐이다.

7. 하나님과 성자와 주께 자기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 간구해라.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라. 그렇게 일주일, 10일, 21일만 살아 봐라. <자기 양심>으로 '하나님과 성자의 음성'이 들리고, <만물>로 보여 주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에게 자기를 많이 사랑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미 많이 사랑해 줬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러면 <사랑>에 불이 붙어서, 그제야 시동이 걸려서 기분이 날고 몸이 날게 된다. 기뻐하며 행하니 '하는 일'이 잘된다.

9. 일만 하지 말아라. 일을 안 하는데도 힘들지 않게 얻는 것이 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기도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해라. 영광 돌려라. 자기를 구원해 준 자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 보아라. 그러면 '날개'가 나서 날게 된다.

10. <휴거>도 기쁨, 감사, 사랑으로 더욱 확인이 된다.

<2015년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늘 주인이 인생들에게 똑같은 나무를 주면서 ‘집’을 짓고 살라고 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니, 어떤 사람은 ‘육의 집’을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영의 집’을 짓고 살았다. 결국 ‘육의 집’은 남아 없어졌고, ‘영의 집’은 영원히 빛나서 때가 되어 <천국 황금성>으로 옮겨 갔다.
2. <육신의 집 =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헌집’ 되듯 한다.
3. <영 우선권>으로 사는 자가 ‘성자와 주 우선권’으로 살 수 있다.
4. 자신은 영적으로 많이 살았다 생각하지만, 막상 ‘영의 저울’에 달아보면 생각과 달라서 충격이다.
5. 체중을 줄일 때도 몇 달씩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하며 살아야 표가 난다. <영>을 위해서 사는 것도 몇 달씩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살아야 표가 난다.
6.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도 체중이 1~2kg 빠진다. 그러다가 먹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이 찐다.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고 운동 살로 채워져 건강해진다. <신앙>도 그리해야 된다.
7. 한 끼를 순간 맛있게 먹으려고 짜게 맵게 먹는다. 이와 같이 인생들은 <신앙을 할 때>도 순간 느끼려고만 한다.
8. <신앙>은 ‘연애 생활’이 아니다. ‘결혼 생활’하듯 마음을 접고, 만사의 모든 신앙의 일들을 ‘생활화’해야 된다.
9. <영 우선권 생활>을 해야만 ‘성자 우선권 생활’을 하게 된다.
10. 경험하고, 배우고, 알고 뛰기다. 경험을 쌓으려면 자꾸 행해라.
11. <잠언>으로 그렇게 가르쳐 줘도, 지도자들이 그것이 ‘특별 잠언 계시’라는 것을 모르고 물어본다.
12. 왜 그 <위대한 말씀>을 ‘초가집 같은 행실’에 쓰느냐. 자기 주관을 못 벗어난 채로 <위대한 말씀>을 쓰면서 살고 있다. <큰 목재>를 주니 ‘초가집’이 넘어질 때 떠받치는 데 쓰고 있다.
13. 새롭게 해라. 안일주의로 하지 말아라. 우선 편하려고만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평생 고생한다.
14. 자기 생활을 뒤집어엎고서 새롭게 해라. 더 좋게 해 보아라. 하늘 앞에 기대하지만 말아라. ‘자기 기대, 자기 희망, 자기 혁신’이다.
15. 나이 30대, 40대, 50대 되는 자들이 이제 섭리사에 와서 시대를 알고 뛰는 자보다도 더 활동을 못 한다. 성자도 주도 답답하니 한숨을 쉬며 뜻을 돌린다.
16. 하루의 해는 두 번 뜨지 않는다. 한 번 뜨고 끝난다. 이와 같이 지금은 ‘구원자가 살아 있는 마지막 귀한 한때’를 보내고 있다. 이때 화끈하게 행하지 못하면, 탄식으로 끝난다. 그 후로는 복식이 없다. <이 좋은 시대>를 만나서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옛날 구시대인들만도 못하게 사느냐.
17. 왜 지도자로 택했는지 깨달아라. 먼저 와서 먼저 배우고, 배우고 알았으면 모두에게 알려 주고 이끌어 오라고 택한 것이다.
18. <글>도 잘 써야 잘 써지듯, <책임과 사명>도 잘해야 잘해진다.
19. 묻기만 하지 말고, <말씀 계시, 잠언 계시>를 성자의 말씀, 성령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깊이 보고 행하여라. 행하면서 배워라. 행하는 자가 현실을 배운다. 지금까지 4만 잠언이 나갔다. 모두 다 들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어

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20.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 줬느냐. 세상에는 ‘하나의 잠언’을 듣고도 깨닫고 성공한 자들이 많다. 100 잠언, 1000잠언, 10000잠언을 듣고 앉아서 줄만 긋지 말아라. 행해라.

21. 잘될 자는 10대 후반에 표가 난다.

22.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때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느냐.

23. 하나라도 깊이 깨닫고 행하는 자가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한다.

<2015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휴거>는 ‘구원자의 욕’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하고, 그 후로 남은 성약 1000년 기간 동안은 <성약 신부급 구원>을 받는다.

2.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의 성약 섭리역사>를 위해 ‘최고의 목적, 사랑의 목적’을 두고 6000년 동안 구약, 신약 섭리를 펴 오셨다.

3. 절대 ‘책임’을 하고 ‘조건’을 행하면 <사탄 주관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탄으로 인해 해를 받지 않는다.

4. 자기는 ‘사탄이 조건을 붙일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생명’을 구하려고 손을 대면, 사탄은 ‘그 생명이 온전한 하늘 주관권에 갈 때까지’ 유혹하고 해를 주려고 역사한다.

5. 사탄은 ‘직접’ 공격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쓰고서 강하게 공격하며 역사한다.

6. 성경에서 사탄은 ‘뱀’으로 비유한다. 고로 꿈에도 사탄을 보여 줄 때는 ‘뱀’으로 비유해서 보여 준다.

7. <자기를 공격하는 뱀>을 때려잡아 없애 버리면, 더 이상 뱀 걱정 없이 그 장소를 편히 사용한다. 이와 같이 <자기를 공격하는 뱀>을 때려잡아 없애면, 더 이상 사탄으로 인한 걱정이 없다.

8. 사탄을 때려잡아 없애는 것이 무엇이나?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9.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다.

10. 성약역사의 영원한 기쁨과 희망이 무엇이나. ‘휴거’다.

11.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승리했다. 고로 사탄은 하늘의 신부들이 ‘휴거를 확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겨라. 이기는 방법은 ‘휴거를 확신’하는 것이다.

12. 휴거를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나. <너를 휴거시킨 자>를 인정하고 시인해라. <그를 보낸 삼위일체>를 절대 인정하고 시인해라. <휴거를 이룬 섭리역사>를 인정하고 시인해라. <시대 대표와 신부 대표>를 인정하고 시인해라. <휴거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해라. <네가 휴거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휴거의 차원>을 높이겠다고 결심하고 도전해라. 휴거되지 않았어도 <휴거 말씀을 믿고 시인하고 행하면 휴거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해라.

13. <휴거의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시대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자신’도 살리고 ‘구할 생명’도 살린다.

14. <영>이 휴거돼야 <육>도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15. 휴거된 자는 승리한 자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차원 높여 살아야 된다.
16. 기도만 하면, 느낌도 감동도 계시도 깨달음도 안 온다. <인식>을 바로 하고 기도해야 제대로 깨닫게 된다.
17. 휴거된 자는 마치 결혼해서 살듯이 ‘휴거의 삶’을 사는 것이다.
18. 자기 영이 휴거됐는데도 휴거됐다는 것을 모르면, 사탄은 간교하게 낙심시키며 ‘그 욕’을 친다.
19. <결혼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그리도 사랑한다. <결혼 후>에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 휴거도 이와 같다. <휴거 전>에는 성자와 성령과 주가 주도하여 신부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휴거시킨다. 그리함으로 <휴거 300선>을 이루게 한다. <휴거 후>에는 신부가 사랑하며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함으로 <휴거 700선>까지 가는 것이다.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차원을 높이려면 ‘같은 사과’라도 더 아름답게 보고, 더 신비하게 보고, 더 귀하게 보고, 더 예쁘게 보아라.
2. 자기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는 ‘사람’도 ‘만물’도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보고, 더 가치 있게 보고, 더 아름답게 본다.
3. 영적으로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는 ‘만물’을 더 귀하고 새롭게 본다. 영의 눈, 생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영적으로 보아라. 혼적으로 생각하고 보아라. 그러면 새롭게 보인다.
5. 영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람’도 ‘만물’도 새롭게 보인다.
6. 영적으로 봐야 ‘존재물의 가치’만큼 제대로 보인다.
7.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고, 새롭게 본다.
8. 똑같은 값이고 똑같이 생긴 볼펜도 자기가 좋아하면 귀하게 아름답게 보인다. - <별로 안 귀한 것>인데도 자기만 귀하게 보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이다.
9.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서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취향, 자기 흥분’으로 도취되어 보기 때문이다.
10. <모든 자들 중에서 뛰어나고 귀한 자>를 보통으로 보면서 귀한 것을 모르는 자는 ‘지능’과 ‘생각의 차원’이 낮기 때문이다.
11. 영적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
12. <몸>으로 하면 불가능해서 못 하지만, <생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13. <생각>으로 하여라. <생각>으로 ‘욕’이 못 가는 곳에 가 봐라. <혼>과 같이 가라. 가서 본 것을 ‘욕’에게 송신해 주어라. 해 봐라. 나는 <혼>과 함께 <생각>으로 찾은 것을 ‘내 욕’에게 송신해 주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었다.
14. <생각>으로 해도 얻어진다.
15. <주체의 핵>과 <대상의 핵>이 일체 돼야 ‘생명’이 만들어진다.
16. <주체 무형의 핵, 신>과 <대상 유형의 핵 인간>이 일체 돼야 ‘영원한 생명’인 ‘영’이 만들어지고, 그 영을 변화시

켜 ‘온전한 영’이 되게 한다.

17. 깨끗한 물에서 깨끗한 생명체가 생긴다. 인간의 몸 안에서도 깨끗한 물에서 생명체가 생긴다.

18.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19. <생명>이 죽은 자는 <생명>을 못 낳는다.

20. 성경을 풀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모순이다. ‘므두셀라가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그러냐고 물어보면, “네가 살아 보면 알지 않느냐.” 하신다.

21. 천지가 뒤바뀌어도 <자기 마음>이 안 바뀌면 안 바뀐다.

22.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먼저 <인식>을 뒤바꾸기다. <인식>을 온전히 하고 다시 볼 때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인식>을 온전히 하고 다시 배울 때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23. <오해> 역시 ‘그릇된 인식관’이다.

24. <오해>는 상대의 입장을 100% 다 몰라서 생긴다.

25. 스스로는 오해가 안 풀어진단다. 상대에게 말을 들어야 풀린다.

26. <무지>에서 오해가 오고, <지나치게 선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다가 오해가 온다.

27. 상대가 자기를 오해하고 있어도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으면 모른다. 잘못 깨닫는 자만 오해하기 때문이다.

28. <상대>를 오해해도 큰일인데, <주>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29. <오해>로 인해 ‘관계’가 끊어진다. <오해>는 ‘오해한 상대’와 풀어야 풀린다. <오해>를 풀어야 ‘관계’가 회복된다.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신앙의 잠>을 자면 ‘사탄’이 온다.

2. <조건>을 주면 ‘사탄’이 온다.

3. 방에 과자 부스러기를 안 치우면 개미가 오듯이, <조건>을 주면 ‘사탄’이 온다.

4. 같은 일이라도 좋게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쪽으로 가진다.

5. 자기가 원해도,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6.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되는 길’로 행하여라.

7. 되는 길이 있다.

8. 자기를 만들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라. 자기를 안 만들고 사랑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게 된다.

9. 인생... 자기를 안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해도 결국 자기가 싫어하게 되어 오래가지 못하고 그것과 헤어

지게 된다.

10. 환경이 좋아도 자기를 안 만들고 그 환경에서 사니, 그 환경과 안 맞아서 결국 헤어지게 된다.

11. 자기를 안 만들면, 전능자의 사랑을 받아도 안 맞아서 헤어진다.

12. 사랑도 자기를 안 만들고 하면, 처음에는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고 해도 가다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13. 왜 자기를 안 만들면, 싫어지고 안 맞아서 헤어지고 싶다고 하겠느냐. - 존재물도, 사람도 ‘상대’와 맞아야 상응하고 작용한다. ‘상대’와 안 맞으면, 결합을 시켜도 처음에는 작용을 하다가 결국 부딪혀서 멈추게 된다. 고로 맞게 만들어야 된다.

14. 기계를 결합시킬 때도 ‘수나사’와 ‘암나사’를 만들어서 조립시킨다. 서로 안 맞으면 결합이 안 된다.

15. 아담과 하와도 안 만들어서 타락된 것이다.

16. 자기를 안 만들고 사랑하면, 상대가 좋아도 안 맞다. 안 맞으니 사랑도 할 수가 없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의 본체’이다. 고로 그 사랑이 높고 깊고 뜨겁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안 만들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면, ‘자기 고장 난 마음’에서 ‘삼위일체’와 안 맞아서 벗어나게 되고, 신앙의 상극이 되어 ‘삼위의 품’을 벗어난다.

18. 자기를 만들면 모두 상응한다.

19. 자기를 만들면 사탄을 이긴다.

20. 자기를 만들지 않아 자기 마음이 고장 난 상태에서는 ‘자기와 겨루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21. <만들지 않은 기계>로는 자기 마음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니 결국 내던지고, 차라리 ‘손’으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기를 안 만든 자>는 상대와 사랑하며 살아도, 상대는 좋다고 하지만 자기는 싫어서 결국 내던진다.

22. 전능자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만큼 자기가 만들어진다.

23. 자기가 전능자와 주의 말씀을 행하며 자기를 만든 대로, 그 영이 변화되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 가게 된다.

24. 사람이 아픈 곳이 있으면 ‘병자’라 한다. ‘병’을 안 고치면 사랑해도 못 받아들이니, 일체 되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25. 자기가 자기를 아니, 고치기다. 습관, 버릇, 죄, 악, 불의, 게으름, 성격, 그릇된 마음·생각·행동을 고치기다.

26. 자기를 안 만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리 마음이 넓으셔도 안 맞다고 하며 떠나가서 악한 자, 불신자, 악평자를 만나 너무 잘 맞다고 하며 살아간다. 결국 천법에 어긋나 어느 날 없어졌다. 찾아보니 구경할 수도 없는 곳에 가 있었다.

<2015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생각과 행위>는 모두 보편적이다.

2. 인간끼리는 <인간 주관권>을 면치 못한다.
3. 인간이 동물과 함께해도 ‘동물의 혼’을 사람같이 만들어서 동물이 죽은 후에 ‘동물의 혼’을 ‘사람의 혼’과 같이 살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르다.
4.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 <육신의 행위>로 인해 <생각>도 변화되고, <혼과 영>도 변화되어 ‘삼위의 형체’를 닮게 된다. 고로 <육신>이 죽어도 <혼과 영>이 일체 되어 삼위일체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기에 <육신의 행위>를 통해 <혼과 영>을 변화시켜, ‘변화된 혼과 영’을 가지고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동물>은 사람과 같이 창조하지 않았기에 변화시켜도 동물로 끝난다.
6.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뇌’를 가지고 생각하고 ‘몸’으로 행하는 만큼 그 <혼과 영>이 더 이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7.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삼위일체와 주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예 자기중심을 버리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8.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태우고 가면서, 삼위와 주의 뜻대로 간다고 한다.
9. 운전대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맡기고, 자기는 그 차에 올라타고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이 삼위와 주 뜻대로 행한 것이다.
10. (성자의 음성) 정상으로 하면, 매일 받는다.
11. 정상으로 행하면, 받을 것을 다 받는다.
12. 마치 글씨 한 자, 한 자를 틀리지 않고 쓰듯이,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하나하나 제대로 행하기다.
13. 사람이 ‘몸의 선’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듯이, ‘생활의 선’이 아름다워야 아름답고 신비하다.
14. <성령님의 선>을 따라 행해라. - 곧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시는 대로 그 선을 따라 가라는 말이다.
15. 일체 돼야 ‘선’을 따라 가게 된다.
16. <선>에 함께 묶여야 <선>을 따라 가게 된다.
17. 육신도 완벽하게 행하면, 천국의 영들이 사는 것같이 살아진다.
18. <승리한 자>는 ‘과거’가 다 ‘기쁨거리’로 떠오른다.
19. <실패한 자>는 ‘과거’가 다 ‘후회와 슬픔’으로 떠오른다.
20. <휴거되어 천국에 간 자>는 ‘과거’가 다 ‘천국’같이 생각된다.
21. <지옥에 간 자>는 ‘과거’가 다 ‘고통’으로 떠오른다.

22. <천국 황금성에 간 자>는 ‘과거’가 모두 ‘황금성 차원’으로 생각나고 떠오르게 된다.

<2015년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몸싸움>을 하면, 한 명에게도 패한다. <머리싸움, 영의 싸움>을 하면, 싸우는 대로 이긴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다. <사명>으로 대항하면 ‘사명자는 한 명’이니 다 이기지만, <몸>으로 대항하면 패하게 된다.

2. <육적 싸움>을 하면 ‘사명자’도 진다. 오직 <말씀의 싸움>을 하고 <생각의 싸움, 정신의 싸움, 영의 싸움>을 해야 다 이긴다.

3. <이성의 싸움>을 할 때도 육적으로 ‘하체’로 싸우면 진다. 영적으로 ‘상체, 뇌’로 싸워야 이긴다.

4. 상대는 ‘육’이라서 ‘육’으로 대하며 싸우러 온다. 그래서 자기도 ‘육’으로 상대를 대하게 된다. ‘영’으로 해야 ‘육’을 이긴다.

5. <영>은 <육>보다 강하다.

6. <머리>는 ‘영’이다. 고로 머리, 곧 <마음·정신·생각, 뇌> 속에 ‘말씀’을 넣어 버리고 ‘사랑’을 넣어 버려라. 뇌에 말씀을 넣기다. 뇌 사랑이다. <영>으로 대하면 지구촌 모든 자들을 100% 다 이기고, <육>으로 대하면 한 명도 못 이긴다.

7. <육>을 가지고도 ‘실제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있다. 이와 같이 <혼>도 ‘혼체가 직접 행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있다.

8. <성령님>은 ‘영체’이다. ‘영 본체’를 가지고서는 직접 행하지 않으신다. ‘말’이나 ‘생각’으로 전달하여 행하신다. 고로 사랑해 주실 때도 ‘말’이나 ‘생각’으로 전달하여 ‘뇌’로 통하게 하신다.

9. <영체>는 <육체>와는 질이 다르다. <영체>는 ‘영체’로 행하고, <육체>는 ‘육체’로 행한다.

10. <혼체>는 ‘육’에 속해 있다. - 고로 <혼체>는 <육체>와 사랑할 수 있다. 이는 ‘육체에 속한 혼체’이기 때문이다. <혼체>는 ‘육체의 마음’과 통하며 사랑한다. 그러나 <육의 마음>이 ‘혼적 마음과 생각의 수준’까지 가야 그 사랑을 느낀다. <혼체>는 <혼체>끼리 실제로 사랑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작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로 인해 다음 단계인 ‘그보다 더 큰일’이 생각나서 하게 된다. 그것에 충성하면 ‘더 큰 것’을 또 발견해서 하게 된다. 그것을 열심히 충성해서 하면, 하나님도 성자도 ‘더 차원 높은 것’을 보여 주어 하게 된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더 큰 것’을 찾고 행하여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큰 것’을 얻게 된다. 고로 <작은 일>에 충성해라. 교회 일, 섭리사의 사명 모두 다 그러하다.

2. 열심히 충성하면서 차원을 높여라.

3. 처음에는 ‘주먹만 한 수석’을 줍다가, 그것과 연결되어 ‘130톤 바위’를 얻게 되었다. 그로 인해 ‘100m짜리 바위’를 얻게 되었다. 작은 것을 작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며 찾다가, 그로 인해 ‘더 큰 것, 하나님의 걸작’을 얻게 된 것이다.

4.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도 먼저는 ‘모래만 한 데’서 시작하게 하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점진적으로 차원

을 높여 ‘더 큰 것’을 주신다. 충성하면서 차원을 높여라.

5. 하나님도 성자도 처음에는 ‘큰 것’을 안 주신다. 먼저는 ‘작은 것’을 주시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충성하며 그 일을 다 하면 ‘다음 단계의 것’을 또 주신다. 거기서 또 열심히 충성하면 ‘다음 것’을 또 주신다. 그로 인해 감사하며 계속 더 열심히 하면 마지막으로 ‘그 센터에서 제일 큰 것’을 주신다.

6. 처음에는 ‘주먹만 한 수석’을 주워 <월명동 박물관>에 넣었다. 그러다가 <수석 전시회>도 하면서 ‘예술의 영광’을 돌렸다. 그다음에는 ‘30~40cm 크기의 돌들’을 <자연성전>에 갖다 놓았다. 그다음에는 ‘1~2m의 돌들’을 찾아 갖다 놓고, 그다음에는 ‘큰 형상석 바위’를 갖다 놓았다. 그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더 큰 형상 바위’를 갖다 놓고 싶은데 너무 커서 못 갖다 놓으니, 그곳에 놓고 개발하면서 보고 삼위일체께 ‘예술의 영광’을 돌렸다. <신앙>도 이같이 ‘작은 것’부터 열심히 충성하면서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이고, 주신 성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7. 만사의 법칙은 같은 법칙이다. 그러므로 첫째, <차원>을 높여야 된다. 둘째,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8. <같은 법칙과 이치>는 ‘똑같은 수준’이다. 그러니 시대가 발달돼도 예전에 했던 생각과 행위를 똑같이 하게 된다. 고로 <차원>을 높여야 앞장서고, <방법>을 달리해야 성공한다.

9.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도 ‘차원’을 높여서 하고, 잘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면서 깊이 간절히 기도해라. 그래야 느낌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응답이 온다.

10. <찬양, 관리, 설교, 강의>도 ‘차원’을 높여서 하고 ‘깊이’ 해 줘야 된다. 그래야 느낌, 깨달음, 감동이 전해져서 상대가 녹는다.

11. <철>이 녹아야 그것으로 ‘형상’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과 행실>도 녹아야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

12. 아플 때 약도 체질에 맞게 먹어야 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같은 체질>로 만들면 더 효과가 있다.

13. <주와 같은 생각, 행실, 체질>로 만들면 더 느끼고, 더 깨닫고, 더 확실해진다.

14. <잠언 하나>는 ‘깊은 계시’다. 이것을 푸는 것이 ‘설교’다.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을 진리를 벗어나 억지로 풀고 행하면 스스로 멸망한다.

2. <성경>을 자기 주관으로 풀고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행한 만큼 형벌을 받았고 멸망을 받았다.

3. <성경>을 제대로 풀고 행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4. ‘억지’로 풀다는 말은 ‘무지’로 풀다는 말이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풀다는 말이다.

5. 기성인들은 ‘예수님의 영’이 부활했는데 ‘육신’이 부활했다고 풀다. 그러니 재림 때가 되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육’이 다시 온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 오니, 성경을 그렇게 풀고 살던 자들은 기다리다가 죽었다. 지금도 그 족속들과 자손들은 선조들을 따라서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아닌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 육’이 다시 오겠느냐.

6. 말세론자, 휴거론자들은 “세상 말세 때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멸하여 지구가 다 불타 녹아 없어지고, 믿는 자들의 육신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하며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믿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했다. 새 역사가 와서 ‘말세, 재림, 휴거’ 등 성경을 바로 풀어 줘도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다고 외면하고 불신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낸 자, ‘사람’을 통해 행하신 일을 불신한 것이다.

7.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중심하는 종교인들이 자기 주관,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풀었다. 성경은 <영>을 두고 말했는데, 자신이 신령하지 못하여 영에 무지하니 <육적>으로 풀었다. 그러니 “육이 휴거된다. 지구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하고, 성경을 그릇되게 풀게 되었다.

8. 성경을 억지로 무지로 끼워 맞춰서 그럴 듯하게 풀고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며 인생 일생을 바쳐 살았지만, 결국 모든 수고가 헛되었고 스스로 망하고 말았다. 무지하게 가르친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그 피 값을 받아야 된다.

9. 성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그러하다. ‘뜻과 순리’가 아닌데 ‘억지’로 행하면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10. 성경을 억지로 풀고 행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살게 된다. <육>도 그러하거니와 <영>은 사망권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비진리로 행했기 때문이다.

11. <진리>를 모르니 비진리의 사고가 자기를 묶게 되었고, 사탄 마귀의 쇠고랑에 묶여 끌려가게 되었다.

12. 누구든지 성경을 바로 풀지 않고 그릇되게 풀고 행하면, 그릇되게 풀고 행한 만큼 그 육도 혼도 영도 ‘비진리의 형체’로 변질되게 된다. 이는 마치 건물 공사를 잘못된 격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그것으로 끝났다. <진리>를 바로 알고 ‘새로운 길’로 와서 온전하게 행하면, 그때부터 온전해지기 시작한다.

13. 성경을 억지로 무지로 풀고 행하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 영계에 간 영들을 보면, 영이 놀라서 막 날뛰고 있다. “왜 내가 이런 곳에 왔지? 왜 지옥에 왔지? 왜 흑암에 왔지?” 하고 충격을 받고 환장하며 괴로워하는 영들을 보게 된다.

14.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면, 스스로 망하지는 않는다.

15. 성경뿐 아니라 ‘비유’로 주는 <만물 계시>도 억지로 영터리로 풀지 말아라. 영터리로 풀고 행해 봐라. 다 헛수고이고 손해만 본다.

16. <자기 생각>도 억지로 풀어 그릇되게 생각하면, 역시 스스로 망한다.

17. <자기 생각의 상태>를 잘 보고 풀어라. <말씀>을 억지로 풀고는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도 오해하고 <형제들>도 오해하다가 스스로 해를 받게 된다.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한 희망의 말씀은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다. 고로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풀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맞기 위해 준비해 왔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살아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같이 성경을 억지로 풀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어도 믿지 않아서 구약 종교인들은 당세부터 후대까지 구약 4000년이 지나고 신약 2000년이 지나도록 믿지 않았다. 또한 이같이 성경을 푼 대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나고, 그로부터 15년이 또 지나도 안 오니 “헛예언이다. 성경이 틀렸다. 성경을 믿는 자들은 맹신자들이다. 속았다. 성경은 옛 종교인들의 기록에 불과해.” 하며 실망하며 신앙을 저버리기도 했다.

3. 구약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온다.’ 하는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같이 눈에 보이게 올 줄 알고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라서 와도 안 보인다. ‘그 시대마다 택한 자의 육신’을 쓰고,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나타나셨다. 모세, 엘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 메시아 예수님 등 때마다 합당한 자들을 택하여 ‘그 육신’을 통해

나타나셨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4. 하나님이 ‘택한 자의 욕신’을 쓰고 오셔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를 통해 수시로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된다.

5. 역지로 푼 성경 말씀은 역사가 지나가도 안 이루어진다.

6. 구약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온다.’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날 것으로 알고 기다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땅에서 택한 자인 예수님의 욕신’을 쓰고 왔어도 안 믿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 주니, 지혜자들은 믿고 따르게 되었다. 믿고 따른 자들은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신약에 주신 아들 권세>를 받고, 2000년 동안 <신약 구원역사 이상세계>를 이루어 왔다. 따르지 않은 자들은 구시대에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제대로 알 때까지 <무지>가 계속 고통을 준다.

7. 성경을 역지로 풀던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역사는 매일 진행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이 깨달도록 <한 기간>을 주신다. 그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다. 그때 못 깨달으면 <새 역사를 펴는 기간>까지 기회를 주신다. 충분히 ‘깨닫고 따를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인생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 ‘그릇된 인식관’으로 인해 <시대 새로운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다.

8. 하나님은 ‘때’이시다. 고로 ‘때’와 함께 가신다. 고로 할 것을 못 하고 <때>가 지나면 다시 근본으로 역사를 되돌릴 수 없으니, 만일 못 한 자가 있으면 그 대신 ‘그때에 해당되는 자’를 불러서 정녕코 행하고 마신다.

9. 성경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하니,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900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온다고 믿었다. <욕>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다시 오는 자>는 ‘엘리야와 같이 증거 사명을 가진 시대 증거의 사명자’를 말한다. 곧 ‘세레 요한’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증거를 잘하는 선지자였다. 세레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

10. 예수님 당시 구약인들은 ‘죽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올 것으로 믿었다. 문자 신앙이다. ‘인간의 욕’은 누구나 ‘그 시대’를 살고 끝난다. 다만 <새 시대>가 오면 ‘그 영’이 <새 시대 주관권>으로 와서 ‘자기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자’와 일체 되어 그를 돕는다.

11.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명’을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를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성경의 신구약 31,062절에서 딱 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나온다. 이 시대도 <3.16>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성자가 ‘그 욕신’을 쓰고 행하시며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시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12. 이 시대 기성인들도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처럼 성경을 역지로 풀었기에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사람>을 보내어 <새 역사>를 시작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역지로 푼 대로 기다리고 있다.

13. 하나님은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시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셨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자들만 알고, 휴거를 이루고 산다. <새 역사>를 따르지 않는 다른 주관권의 사람들은 모른다. 가뭄 때 비가 온 곳의 나무만 혜택을 받아 열매를 맺고, 나머지는 타 죽고 끝난다. 시대도 그러하다.

14. 기성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역지로 풀어서 <재림>을 못 맞고 끝났다. 제대로 풀고 행한 자들만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인 ‘휴거’를 맞고 살고 있다. 이미 ‘휴거된 영들’은 <천국 황금성>에 가서 혼인 잔치를 하고 있고, ‘그 욕들’은 땅에서 <삼위일체>를 섬기고 <보낸 자>를 믿으며 <새 역사>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때가 되어 행하신 역사다. 그러나 역사가 이루어져도 예수님 때같이 처음에는 아는 자 소수만 알고 따르고, 나머지는 모르고 반대한다. 고로 숨어서 역사를 펴니 더욱 모른다. 이에 ‘택한 자들’을 골라서 역사를 펴니, 나머지는 더욱 알 수가 없다.

15. 137억 년에 걸친 인류 창조 이후, 6000년에 걸친 신구약 구원역사 이후, 지금 <성약 섭리역사>는 ‘최고로 큰 축복의 역사’다. 그 이상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뤘으니, 얼마나 큰 역사냐. 행한 만큼 그 대가로 천국에서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을 주겠느냐.

16. 신약 때는 아들 권세, 성약 때는 신부 권세다.

17.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는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영>이 그 급으로 변화되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했다. 땅에서 <자기 육신>을 통해 ‘자기 영이 거할 세계’를 건설하고 간 것이다.

18. <자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자와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수고하여 ‘천국 황금성’을 지었으며, 그 수고로 <자기 영>을 ‘삼위일체의 신부’로 만들어 휴거되어 ‘황금성’에 갔다. 고로 누가 시기 질투도 못 한다. 모르고 산 것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19. 성경을 <순리>로 풀고 산 자가 땅에서 ‘주’를 맞고 ‘천국의 삶’을 삶으로 ‘신부’로 변화되어 결국 ‘천국 황금성’에 갔다.

20.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참주관권> 안에서만 ‘성경에 예정된 온전한 뜻’을 이룬다.

21. <참진리의 철장 권세>로 인해 ‘비진리’는 질그릇같이 깨졌고 스스로 망했다. 그리고 역사의 거울이 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보낸 자 외에는 ‘성경의 근본 뜻’을 풀지 못한다. 그것은 인봉되어 있기에 오직 ‘예언된 주인’이 와서 자가 직접 행하면서 풀기 때문에 ‘그’외에는 아무도 못 푼다.

2. <117기도 인봉>도 그에 해당된 자만 뚫는다. 오직 ‘주인’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고 살면서 인봉을 뚫는다. <새벽 1시>는 ‘오전의 첫 시간’이다. <오후 1시>는 ‘오후의 첫 시간’이다. <저녁 7시>는 ‘밤의 첫 시간’이다. 주인으로서 행하니, 깨닫고 인봉을 뚫은 것이다. <117기도>를 하면, ‘8’과 같이 새롭게 된다. 복직된다 함이다. 그러면 ‘팔자’가 펴진다 함이다. (해외는 설명을 해 줘라. 한국어 ‘8-팔자’)

3. 이와 같이 <성경>도 그 예언을 이루면서 풀어야 된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땅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에 “이것이다.” 알고, 인봉을 풀고 행한 것이다.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신부역사>도 이루게 된다.

4.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 센터의 주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뜻’을 이룬다. <월명동 전설>도 그곳을 이상세계로 개발하고 행한 자가 ‘전설의 주인’이 되었다.

5. 새벽의 첫 시간, 오후의 첫 시간, 밤의 첫 시간을 뺏기면, 나머지 시간들도 뺏긴다.

6. 창세기 4장 3~5절을 보면 <아벨>은 자신이 얻은 것 중에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셨다. 하나님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시간도 그러하다.

7. <117기도>를 6년 동안 하고, 2015년 5월 16일에 성령께서 “깨달아라.” 하시어, 내가 해 놓은 것을 보고 ‘117기도의 의미’를 깨달았다. 안 했으면 안 보이니 못 깨닫는다. 행하고 깨달았다.

8. <잠언>도 먼저 행하고 그 수준의 것을 깨달게 된다. 행하지 않고 깨달기만 하고 쓴 잠언은 ‘관념 잠언’이다.

9. 성경에 예언한 것들도 모두 행하고 깨달은 후에 이룬 자가 ‘거기의 주인’이다.

10. 문제를 푼 자가 합격한 주인이다.

11. 성경은 시험 볼 때 답을 쓰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자와 함께 긴 세월 동안 생명들을 키워서 그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며 <성경의 예언>을 이룬다. 이것을 하는 자가 '성경에 예언된 자'요, '기다리는 자'다.

12. <생활>을 억지로 풀고 살지 말아라. '선'을 넘어서 억지로 살면, '길'도 아니고 '뜻'도 아니라서 안 된다.

13. <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해라.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시고 줄 것을 주신다.

14. <자기 생각>을 잘 풀어야 된다. 억지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해가 되고, 생각한 것을 행하는 대로 해가 된다.

15. <상대의 마음>을 잘 풀어라. 억지로 풀면 심정 상하고, 화를 내게 되고, 마음이 상해서 상대와 멀어진다.

16. <상대의 마음>을 '순리'로 풀고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라.

17. <교회 공적 일>을 두고서 '억지'로 풀지 말고 '순리'로 풀어라.

18. <꿈>은 자기에게 해당되니 자기가 행한 것을 생각하면서 풀고, 자기가 행하면서 풀어야 된다. 어떤 꿈은 10~20년 만에 풀리고, 그 꿈을 풀고 사는 삶의 기간도 몇십 년씩이다.

19.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다. 그 꿈은 21년 후에 이루어졌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대신이 되어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 꿈을 이루며 살았다. <꿈>이 '한 역사'를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20. 어느 때는 꿈에 '상대'를 '자신의 처지'로 보이면서 계시해 주기도 하신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21. 생시에 일어날 문제가 <꿈>으로 보이기도 하니, 꿈을 꾸고 생시에 정신 차리고 행하지 않으면 당한다.

22. <꿈>에서는 '혼'을 통해 계시하고, <생시>에서는 '육'을 통해 계시한다. <꿈>을 통해서만 계시하지 않고 <생시>에 '육'을 통해서도 계시한다는 것을 알고 행해라.

23. 공적인 일을 하느라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만큼 손해가 간다. <기도>는 기도이고, <공적>은 공적이다.

24. 기도하지 않으면 수 십 가지가 '해'가 되고, 기도하면 수 십 가지가 해결되어 '복'이 된다.

25. <기도 시간>은 '그 일을 하는 시간'과 같다. <기도>로 그 일을 해 버리는 것이다. <기도>는 '일'이다.

26. 기도하면 자기 혼도 영도 실제로 그 일을 해 버린다. 또한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어 그 일을 해 주신다. 고로 기도해라. <기도>는 '일'이며, <기도 시간>은 '그 일을 해결하는 시간'이니, 조금 하지 말고 열심히 간절히 깊이 기도해라.

<2015년 7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억지로 풀고 사는 자들은 '이단 종교'가 되고, '하나님의 적'이 되고, '영이 멸망으로 가는 삶'이 된다.

2.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십계명에 있는 대로 <신>에 대해 억지로 풀고 살다가 결국 '영'이 사

망으로 가고, ‘육’도 사망권에서 산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3. <성경, 종교, 하나님>을 억지로 풀고 사는 자들과 바로 풀고 사는 자들의 육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고, 또 그 영을 보면 아예 다르다. 억지로 풀고 사는 자들의 ‘영’은 사망에서 살고 있고, ‘그 육’도 사망권에서 살고 있다.

4. <성경,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억지로 풀지 말아라. 억지로 푸는 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태양 같은 형상을 가진 존재자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다. 성자는 예수님이다.”라고 말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니, 행하는 만큼 해가 되고 스스로 망한다.

5.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구조’를 닮아 있다. 빛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6. <성령님>은 ‘천모, 여성 신’으로서,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일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서 각 위로 존재하신다.

7. 삼위일체는 ‘한 존재’가 아니다. 천부 하나님, 천모 성령님, 성자 - 이렇게 ‘각 위’로 따로 존재하신다. 그 모습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일체 되어 사신다.

8. <성자>는 ‘삼위일체의 한 존재’로서 예수님같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큰 존재가 아니다. ‘창조자, 전능자, 절대신’이시다.

9. <삼위일체>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억지로 풀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 영들’이 스스로 멸망하여 사망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잠언을 쓰고 있다.

10. <성경>을 거짓되게 억지로 푸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알고 순종하고 따르며, 조용히 ‘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사고와 주관이 사망에 묶여 사는 자들에게 뭐하러 시간 아깝게 ‘참된 진리’를 전하며 억지로 설득시키려 하느냐. 믿고 따르는 자들을 키우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기에도 바빠서 숨을 몰아쉰다. 그들은 결국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이 병든 채 살다가 육신은 점점 늙어 가서 ‘그 날’을 맞게 된다. 그 날에 <영계>에 가서 ‘영’을 보아라. 생각과는 다르다. 매일 그 날 하루를 살고 나서 <영계>를 확인하며 살아야 완전한데, 일생 동안 <영계>를 제대로 한 번도 못 가 보니 ‘자기 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 날’을 맞은 것이다. <영계>에서 ‘그 영의 꼴’이 어떻게 됐겠느냐. 뻘하다. 그 육이 행한 대로다.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겠느냐.

11. <전도>도 억지로 하지 말아라. <말씀>도 억지로 듣게 하지 말아라.

12. 악평자들은 ‘악평 글’로 억지로 행하지만, 그들은 ‘사망’에 묶여서 일생 동안 그 끈을 끊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악평을 받은 자가 ‘용서’로 ‘사망의 끈’을 끊어 주지만, 자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이제 누가 그 끈을 끊어 주겠느냐.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 대한 ‘상대’에게도 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된다 하셨다. 악평한 만큼 3년, 10년, 20년 동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해가 가게 한 것을 ‘행위’로 모두 다 해결해 줘야 된다. 고로 모르면, 따르지는 않더라도 막지는 말아라. 거짓되게 악평하지 말아라. 그 육과 영의 앞날이 심히 걱정된다.

13.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떠나서 행하면, 개인·가정·민족·세계가 고통을 받게 된다.

14.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누가 손을 안 대도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된다. 마치 절벽에서 누가 손을 안 대도 자기가 발을 헛디디면, 스스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한다.

15. <성경>을 바로 풀고, 바로 알고 행해라. 그리고 바로 가르쳐 주어 인생들을 ‘생명길’로 가게 해 주어라. 그런 자의 ‘영’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고, 세상에서도 ‘그 육’이 주와 함께 시대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간다.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고, ‘그를 보낸 하나님’을 본 것으로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 간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고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는 자는 <새 시대>로 갈려 가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보고도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자는 <구시대>로 갈려 간다.
2. 사람이 ‘제대로 보는 것’과 ‘제대로 못 보는 것’의 차이는 극과 극이다. 제대로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생각도, 욕의 삶도, 환경도, 영의 삶도 갈려 간다.
3. 주는 믿고 따르는 대로 보여 준다. 주는 의심하는 자에게는 자신을 숨긴다.
4. <구시대>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새 시대 세례요한 격’이다.
5. <구시대>를 가르치면서 <새 시대>와 연관시켜서 가르쳐야 이해가 빨리 간다. <새 시대>를 알았을 때는 <새 시대의 것>만 전하면 된다.
6. 증거자의 증거를 받았으면, 이제는 자기가 ‘내적 증거’, 혹은 ‘외적 증거’를 하는 증인이 돼야 한다.
7. <삼위일체>는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쓰고 나타나신다. 그는 삼위일체를 증거하며 나타낸다. 그 증거를 듣고 그를 ‘주’로 보고 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운명이 갈려 간다.
8. <보냄을 받은 구원자>는 또 ‘자기에게 합당한 자’를 쓰고 나타난다. 그는 구원자를 증거하며 나타낸다. 그 증거를 듣고 구원자와 증거자를 연관시켜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려 간다.
9. <3.16 성자 승천 날, 휴거 날>까지 ‘시대 대표와 신부 대표’가 천주 앞에 두 증인이 되어 극적으로 <말씀>을 전해 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휴거시켰다. 최고 극적인 기간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6년 동안이었다. 그때가 ‘성자가 보낸 자’를 ‘성자’같이 보고, ‘주가 보낸 자’를 ‘주’같이 보고 대하며 그 심정을 받고 행할 최고의 기회였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은 충전이 덜 되어 약해졌다.
10. 떨어진 것은 ‘둘’로 본다. 떨어지면 ‘충전’이 안 되고 오히려 ‘방전’이 된다. ‘보낸 자’와 붙어야 100% 충전되어 강하다.
11. <몸>을 본 것은 <금단의 과일>을 확대해서 본 것이다. 꼭 <금단의 과일>만 봐야 본 것이 아니다. <몸>을 봤으니, 몸과 연결된 <핵, 금단의 과일>을 본 것이다. 이같이 보는 자가 한 차원 높은 자다.
12. 사람들은 꼭 <핵>을 보고 행하려다가 못 하고 끝난다. ‘보냄을 받은 자’를 보면서 ‘그를 보내신 자’를 보아라.
13. 절대 ‘구원자’와 하나 돼야만, 그를 통해 ‘그를 보내신 핵, 삼위일체’를 겹쳐서 보게 된다. 삼위일체는 ‘보낸 구원자’를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 되어 봐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착오가 있는지 보게 된다. 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아는 자’가 가르치고, 그래도 못 고치면 ‘주인’에게 고하여 고치게 하여라.
14. 안 보이는 <뇌>를 꼭 보려고 하느냐. <몸>을 ‘뇌 확대체, 뇌 전개체’로 보고 대해라. 또한 <몸>을 ‘눈, 코, 입, 귀, 얼굴의 확대체, 전개체’로 보고 대해라. 그리 보고 대하고 관리해야 병도 안 생기고 문제도 안 생긴다. 이와 같이 <구원자를 보낸 삼위일체>와 <삼위일체가 보낸 구원자>를 하나로 보아라. 따로 보는 자는 운명이 ‘사망’으로 ‘구시대’로 갈려 간다. 하나로 봐야 ‘한 지체’처럼 되어, 징조·계시·영감·느낌·깨달음을 받고, 좋은 것도 알게 되고,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간다.

15.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생명들에 대한 계시’가 온다. 자기 몸으로, 혼으로, 만물로, 깨달음으로 계시가 온다.

16. <성자와 성령님이 주신 계시>라면, 계시가 희미하게 와도 맞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확실하게 보이게 되듯, <각자 앞날의 상황>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느껴지다가 점점 확실해진다.

17. 진정 보고자 하는 자라면,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자라면,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간단한 만물’을 가지고 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느끼게 하신다.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꽃’도 보고 ‘열매’도 본다.

2. 상식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대개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

3. <뇌>를 확대하면 <몸>이다. ‘뇌를 확대시킨 몸’은 ‘뇌와 연결된 형상’이니, ‘실체 뇌’로 보는 것이다.

4. <금단의 과일>을 확대하면 <몸>이다. ‘금단의 과일을 확대시킨 몸’은 ‘금단의 과일과 연결된 형상’이다. 둘이 ‘형상’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5. <금단의 과일>은 ‘실체’라면, <몸>은 ‘상징과 비유’로 본다. 상징인 <몸>을 보여 줬다면, 실체인 <금단의 과일>을 본 것이다. 둘이 ‘형상’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6. <3.16> 때같이 뇌가 타고 심정이 타고 몸이 타게 후회하며 겪어 봐야, 그때를 거울로 삼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것들’을 실수 없이 후회 없이 행한다.

7. <예감, 직감, 영감>은 ‘파장’으로만 전달될 때가 있고, ‘실체’가 나타나면서 전달될 때가 있다.

8. <생시>에는 ‘자기 마음·생각·혼’이 ‘자기 육’에게 계시하게 하시고, <꿈속>에서는 ‘만물’을 보이며 ‘자기 혼’에게 계시하게 하신다.

9. <그 만물>을 보여 주며 계시하는 이유는 ‘그 만물의 의미와 사연’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로 ‘그 만물’을 통해 그와 같이 그러함을 깨우쳐 준다. 예를 들어 ‘화려한 인생을 살다 간 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 ‘화려한 색의 새’를 보여 줬다 하자. ‘그 사람과 새’는 형상은 다르다. 그러나 그만큼 ‘화려하다는 의미’는 같다.

10. <연결된 것>은 ‘형상과 모양’만 다르지, ‘의미와 사연’은 같기 때문에 깊이 보면 ‘상징과 실체’가 겹쳐서 보인다.

11. <연결된 것>은 ‘형상과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로 봐야 된다.

12. <뇌>와 <손>은 ‘형상과 모양’은 다르다. 그러나 연결되어서 ‘뇌가 지시하는 것’을 ‘손’이 행한다. 고로 <손>을 ‘보이는 뇌’로 보는 것이다.

13. <손>이 안 가는데 되는 일은 거의 없다. <손>은 ‘제2의 뇌’다. <몸>은 ‘제3의 뇌’로서 그만큼 많이 쓰인다.

14. 차원이 낮은 자는 연결되어 있어도 ‘둘’로 보고, 차원이 높은 자는 연결되어 있어 <기능>을 같이 하니 ‘하나’로 본다.

15. 차원이 높은 자는 <쌀 뽕튀기, 쌀 떡, 밥 누룽지>를 ‘하나’로 본다. <생긴 모양>은 달라도 ‘영양’은 같기 때문이

다. 그러나 차원이 낮은 자는 생긴 모양만 보고 ‘각각’으로 본다.

16. <하늘이 보낸 자>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형상’이 다르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그를 보내어 말씀하시고 행하시니 연관지어 ‘하나’로 보는 것이다.

17. <본체>도 형식적으로 보면, <대상체>도 안 보인다.

18. <삼위일체>를 형식적으로 보니, <삼위일체가 보낸 구원자>도 못 알아보고 못 보는 것이다.

19. 존재물이 있는데 얼마나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깨달음의 차원이 좌우되고, 깊이 보는 만큼 확실히 보게 된다.

20. <시대 구원자>도 얼마나 깊이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차원, 지혜와 지식의 차원, 영적인 차원, 휴거의 차원’이 좌우되고, 깊이 보는 만큼 확실히 보고 알게 된다.

21. 세밀히 자세히 보려 하지 않고 대충 보면, 10년을 봐도 ‘근본’은 제대로 모른다.

22. 자세히 보고자 하고 봐야만 제대로 보고, 뇌에 쏙 입력하게 된다.

23. 주도 자세히 보아라. 말씀도 자세히 보고 들어라. 시대도 자세히 보아라. 진정 제대로 보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확신>이 생기게 된다.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연결된 것은 하나다.

2.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씀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명과 뜻’이 일체 되어 연결됐기에 그러하다.

3. 오른손과 왼손은 ‘각각’이다. 그러나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다. 이와 같이 사람도, 존재물도 연결된 것은 하나다.

4. <최고 합당한 비유>는 최고의 핵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다.

5. <최고의 비유>로 말해 주면, 듣는 자들이 확 받아들이고 깨닫는다.

6. <최고 비유의 말>은 미련한 자라도 꿀꺽 삼키고 깨닫는다.

7. <여자 금단의 열매>는 ‘온 지체’와 연결되어 있으니, 지체와 하나다. 고로 <지체>는 ‘제2의 금단의 열매’다. 고로 <여자의 지체>를 본 자는 ‘여자의 금단의 열매’를 본 것이다. 그런데 뭘 더 보려고 기웃거리느냐.

8.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여자>를 본 자는 ‘여자의 금단의 열매’를 본 것이다.

9. 비유를 풀건대 <금단의 열매>는 ‘삼위일체’다. <여자의 몸, 지체>는 ‘삼위가 보낸 구원자’와 ‘말씀’이다. 고로 <구원자>를 본 자와 <그가 전하는 삼위의 말씀>을 들은 자는 ‘삼위일체’를 본 것이다.

10. <삼위일체>는 ‘구원자의 육’을 보이며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11. <신>은 존재하고 있어도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고로 육의 눈으로 잘 보이는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말씀’하시며, <신의 목적>을 이행하고 이루신다.

12. <예수님>을 본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13. 이 시대도 <삼위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본 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본 것이다.

14. <구원자를 보낸 삼위일체>와 <보냄을 받은 구원자>는 얼굴도 다르고 몸도 다르다. 그러나 <삼위>는 <그>를 통해서 ‘할 말’을 전하신다. 고로 <그>를 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를 보낸 삼위’를 본 것과 같다.

15. <신>이 인간에게 말하면, ‘인간의 육’은 못 알아듣는다. 고로 신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이 보낸 자의 육’을 통해 말씀하신다. 6000년 구원 역사를 보아라. 항상 그렇게 하셨다.

16. <주>도 자기가 분신처럼 쓰는 ‘분체’를 통해서 말씀한다. ‘그’를 본 자가 ‘주’를 본 것이다.

17. <방송국에서 보내는 프로그램>은 ‘화면’없이 못 본다. - 이와 같이 <천국에서 보내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은 ‘삼위가 택한 자’ 없이 못 듣는다. <삼위가 보낸 자>가 ‘화면’이 되어 그를 통해 ‘삼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삼위일체’를 보게 된다.

18.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방송국 역할’을 하고, <삼위가 보낸 구원자>는 ‘TV 역할’을 한다. <구원자>를 통해 <삼위일체>를 보고 느끼게 하시고 <삼위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19. 어떤 미련한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육신’이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그 육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한다.

20.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갔다면, 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이 단 한 번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영’만 나타나서 계시하고 말씀하셨겠느냐. <결과>를 보면 모르겠느냐.

21. <영>은 육이 죽으면 ‘그동안 육이 행한 것들’을 다 받아서 가지고 간다. 고로 <육>과 <영>은 하나다.

22.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육>은 성경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해 내어 주었고,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여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고로 예수님은 신약역사가 펼쳐진 2000년 동안 믿는 자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고 돕고 협조하며 구원하셨다. 그러나 기성인들은 “아니다. <육>이 부활하여 승천했다. 그리고 그 <육>이 곧 재림한다.” 한다. 육적이니 ‘육’으로만 풀고, 구원자가 아니니 그릇되게 푼다. 1000년 동안 기다려도 <육>은 다시 안 온다. 신앙이 죽어 있으니 못 통하여 모른다.

23. 사도 바울도 <육>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말씀했다.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라서 ‘육’으로는 못 간다.

24.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빛의 속도’로 가도 150억 년이 걸린다. <하늘나라>는 그보다 더 멀리 있다. 그런데 그 먼 곳을 <육>으로 가겠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2000년쯤 됐으니, 만일 예수님이 ‘육’으로 천국에 갔다면, 지금도 가고 있는 중이겠다. <육>은 ‘메시아의 육신’이라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천국>에 ‘육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육이 가서 살 수도 없다. <천국의 이치와 진리>도 모르면서 ‘육적 부활’을 주장하느냐. 그리고 모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답답해서 새 역사의 뜻을 펴시겠느냐. 삼위일체는 ‘아는 자, 이 시대에 뽑은 구원자’를 통해서 <부활 역사>도 펴시고 <휴거 역사>도 펴신다.

25. 미련한 자들은 <휴거>도 ‘육’으로만 풀어, “예수님의 육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면, 육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하며, 절대 믿고 기다린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15년이 더 지났어도 소식이 없고, 먹구름에 비만 내리고, 계절 따라 눈만 펄펄 내린다.

26. 기성인들은 2000년경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구가 불에 타 녹아져서 없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휴거시켜 데리고 간다고 믿으며 희망에 가득 차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멀쩡하고 ‘육이 휴거된 자’는 한 명도 없고,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온 자’도 없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렇게 믿고 기다린다. 하나님은 <때>를 절대 하루도 미루지도 않으시고, 당기지도 않으시고 때에 맞게 정확히 행하신다. 그런데 기성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때는 이미 지났고,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믿는 자들이 ‘육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으니, 그렇게는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정한 날’에 행하셨다. 고로 구약 때 ‘중심인물, 선지자들’을 쓰고 오셨듯이, 신약 때 ‘예수님’을 쓰고 오셨듯이, 지금도 ‘땅에서 택한 자 육신’ 쓰고 오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시대 말씀>을 선포하여 ‘따르는 자들의 육’이 믿고 행하게 함으로 ‘그 영들’을 변화시켜 휴거시켜 데리고 가셨다.

27. 예수님 때도 구약인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이 온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 쓰고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시대 목적>을 다 행하고 가셨다.

28. <삼위일체>와 <그 시대에 보낸 자>가 연결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4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넘도록, 1000년이 넘도록 계속 기다린다.

29.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셨는데도 못 받아들이면, 그는 계속 ‘구시대에서 기다리는 원시인 신앙, 무지의 신앙’을 하다가 죽는다. <그 육>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영계에 가면, 그제야 자기가 잘못 믿었다는 것을 알고 개탄하고 통탄하고 한탄한다.

30. 인간은 모르면 무지하다. 무지를 벗어나는 것이 ‘부활’이며 ‘살아나는 것’이다. 무지를 벗어나는 것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길’이며 ‘신이 되는 길’이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육신>은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곧 ‘각 지체, 눈, 코, 입, 귀, 머리, 손, 발, 팔, 다리’등 기본 구조가 <남자>는 ‘하나님과 성자’를 닮았고, <여자>는 ‘성령님’을 닮았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첫째, ‘보낸 자의 육신’ 쓰고 나타나 말씀하신다. 둘째, ‘믿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 역사하신다. 셋째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신다.

3. <만물로 깨닫게 하는 것>이 ‘만물의 글’이다.

4. <삼위일체의 글>은 ‘만물’이다. 합당할 때마다 ‘만물’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고로 만물을 보고 깨달아라. 만물의 글을 읽어라.

5. <세상 학문>도 배워야 알듯이,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도 배워야 안다.

6.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나 ‘만물’을 통해서 은밀히 깨우쳐 주신다.

7.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만물의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글’을 배웠으니, 매일 만물을 보며 삼위와 통하게 된다.

8. <만물>은 ‘실제 존재물’이다. 영상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실제 존재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만물의 글을 읽어라.

9. 만물을 보며 깨달아지면, 만물의 글을 읽은 것이다.

10. 가령 자기가 어떤 일을 놓고 ‘할까? 하지 말까?’ 하며 답을 구할 때 <만물>로 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보여 주시며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깨닫게 하신다.

11. 하나님이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계시하셔도, 즉시 알아야 행하여 유익이 된다. 때 지난 후에 깨달으면 유익이 없다.
12. 전적으로 배워라. 조금 배우면 조금만 얻는다.
13.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것과 연결된 것’을 꼭 알아야 된다.
14. <성자 승천> 하면 ‘그것과 연결된 신부 휴거’를 알고, <육> 하면 ‘혼과 영’을 알고, <여자> 하면 ‘남자’를 알고, <구원자> 하면 ‘그를 보내신 삼위일체’를 알고, <시대 아담> 하면 ‘시대 하와’를 알아야 된다.
15. 하나만 알면 억울하다. 약하다. 힘들다. 일이 제대로 안 된다.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16. 한국의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여 서로 <언어>로 교통하고 <글>로 교통하라고 ‘세계에서 최고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다.
17. 이 시대도 시대 구원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특히 하늘의 신부가 되어 사랑의 대상으로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들이 삼위일체와 잘 통하도록 ‘삼위의 글자인 만물의 글’을 자신 먼저 깨닫고 배우고,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다.
18. 삼위일체는 <창조한 만물>을 보여 주며 ‘그때마다 합당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사람이 <만물의 글>을 모르니 기도는 해도 평소에 삼위와 잘 교통하지 못했다. 삼위일체는 <만물>을 ‘글’로 삼고 ‘실체’로 삼고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귀히 여겨라.
19. 삼위일체와 매일 통하고 싶거든 <만물의 글>을 배우고 읽어라. 그러면 매일 삼위일체와 통하게 된다.
20. <만물 글의 가치>를 알면, 안 배울 사람이 없다. <만물의 글>은 마치 애인과 전화로 통하듯 삼위와 가장 빨리 통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늘 이야기하며 삼위와 통하려 해야 통하게 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100만 종이 넘는 만물을 ‘그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합당한 것을 보여 주며, 감동시켜 깨닫게 하신다. 그것을 보고 깨달아진 것이 ‘만물의 글을 읽은 것’이다.
22. <만물의 글>을 안 배운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문맹자’이다.
23. <만물의 글>을 배워라. 사고가 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만물’을 보이며 깨우쳐 주시어 피하게 하신다.
24. 선생이 20대 때 대둔산 용문골에서 기도하는데 새가 울어서 눈을 떠 보니 어두워지기 직전이었다. 산이라서 어두우면 위험하니 내려가라고 계시하신 것임을 깨닫고, 서둘러 내려왔다.
25. <만물의 글>을 배워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읽고 얻게 된다.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게 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평소에도 꿈에도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보이시며 비유로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며 깨우쳐 주신다.
27. 외국어만 배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도록 <만물의 글>을 배워라. <만물>은 어디를 가도 있으니, 보이는 곳마다 계시하고 말씀하신다.
28. 모르면,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패하여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과 성령

님과 성자는 ‘구원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만물’을 통해 말씀하신다. 고로 <시대 말씀>을 배우고, <만물의 글>도 배워서 ‘사탄’도 이기고 ‘무지’도 이겨라.

29. 월명동에도 ‘지형’으로 ‘글’이 써져 있다. 월명동 지형을 보고 만물의 글을 읽게 되면, 신기하다고 하고 감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함으로 ‘보낸 자’를 더 믿고 확신할 것이다. * 월명동 산에 만물의 글이 써져 있다. 사진 보고 읽어 봐라. 읽으면 상금 준다.

30. 스마트폰은 사용할수록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만물의 스마트폰>은 많이 사용하며 통해도 요금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게 되어, 통할수록 ‘물질’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31. 최고 스마트폰은 ‘뇌 생각 스마트폰’이다. ‘생각’이다. 매일 삼위일체를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면서, 매일 통해라. 매일 기도하며 통하고, 평소에도 부르고 찾고 대화하며 통해라.

<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32. 세상에서는 방송국에서 ‘전파’를 보내면 ‘TV 화면’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다. <천국>이나 <영계의 높은 차원>에 갈수록 영들은 ‘생각’을 통해 상대방에게 ‘영파, 생각파’를 보낸다. 그러면 그곳은 차원이 높은 세계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영파, 생각파’를 받고 즉시 안다. 곧 <생각>이 화면같이 ‘말과 실체’가 되어, 말하는 내용이 실체가 되어 ‘영의 눈’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오묘하고 신비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33. 주와 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주의 생각’을 받기 위해 기다리면서 ‘주를 생각’해라. 그러면 주가 ‘너’를 생각하니 서로 통하게 된다.

34. <자기>도 생각하고 <상대>도 생각하여 ‘양쪽의 뇌 생각’이 오픈되어 있으면, 즉시 서로 통한다.

35. <애인>은 늘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니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다. 그러나 <타인>은 생각이 떨어져 있으니 가까이 있어도 ‘각각’이다.

36. <관념 신앙>은 ‘육’에 속해서 ‘육’과 같이 사라진다.

37. 연결된 것을 하나로 보고, 늘 부르고 찾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통하면서 <실존 신앙>을 해라.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보고, 삼위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말은 허황된 말도 아니고, 기분 내라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착시 현상도 아니다.

39.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절대신’이며 <구원자>는 ‘삼위가 보낸 자로서 사람’이다. 이는 ‘각각’이지만, 삼위가 그를 통해 나타나 말씀하시고, 삼위를 느껴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시니 ‘하나’다.

40. 연결된 것을 하나로 보고, 그와 일체 되어 행해라. 그래야 휴거의 차원이 높아진다.

41. <인식과 사고>는 ‘결정’이다.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으면, 아무리 옳게 이야기해도 ‘그릇되게 결정’해 버린다.

42. 그릇된 사고(思考)가 사고(事故)를 낸다.

43. <그릇된 사고를 하며 행하는 것>은 마치 운전하는 자가 운전대를 다른 데로 돌리고 계속 속력을 내는 것과 같다.

44. <육의 몸>은 ‘제2의 뇌’다. <뇌>와 <몸>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45. <성지 땅 자연성전의 핵심지>만 성전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으니 <전체>가 다 자연성전이다.

46. <성전>은 ‘하나님의 몸을 전개한 곳’이다. ‘삼위일체의 상징적 몸’이다.
47. 누구든지 ‘자기 육’을 본 자는 ‘실존체 혼’을 본 것이다. <육>은 ‘제2의 혼’이기 때문이다.
48. 꿈에 ‘자기 혼’을 본 자는 ‘자기 영’을 본 것이다. <혼>은 ‘제2의 영’이기 때문이다. <영>과 <혼>은 ‘생김새’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으니 <혼>을 본 것이 <영>을 본 것이다.
49. 사람이 ‘인식’을 잘못하고 보니, ‘눈’으로 봐도 모른다.
50. <인식과 사고>를 바로 하고 봐야 제대로 보고, 봐도 깨닫는다.
51. 이 시대가 <3.16>같이 또 몰라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많은 것들 중에서 ‘성자의 육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인식을 제대로 못 하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성자의 육’마저 떠나면, 영이 그리도 억울해질 것이다.
52. <성자의 육, 구원자>가 땅에 살아 있어도 ‘관념’으로만 보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
5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너’를 구원하고 휴거시키기 위해 ‘삼위의 육으로 쓰는 자’, 그를 정말 실감 나게 여기고 믿고 따라라. 아직도 많은 자들이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만 보고 믿고 행하고 있다. 그러니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54. 성자가 지상에 계실 때는 <성자>와 <그의 육, 분체>를 ‘둘’로 나눠서 봤지만, 이제 성자가 떠나셨으니 ‘하나’로 볼 때다.
55. 항상 육신들은 ‘성자의 육, 구원자’를 통해서 ‘성자’와 통해야 된다. 그가 성자께로 가는 문이다. 길이다. 생명이다.
56. <삼위가 보낸 자, 구원자, 성자의 육>을 못 믿겠으면, ‘그가 하는 말과 행함’을 보아라.
57. <삼위일체>와 <분체>, <시대 하와>는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보고 행해라. 그리하면 ‘지혜, 능력, 신령함의 차원’이 높아지고, ‘성령의 불’을 뿜게 되고, 진리와 은혜로 매일 ‘휴거의 차원’이 높아진다. - 이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하기 때문이다.
58. <보이는 성자의 육>과 끊어지면, 하나가 아니다.
59. <구약 신약 성약>은 하나 되지 않고 끊어져서 각각 살게 되었다. 끊어지면 죽은 것이다. <새 역사>는 ‘살아 있는 역사, 부활된 역사’다. <새 역사>와 하나 돼야 ‘산 자’가 된다.

<2015년 7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연결된 것은 하나다. <삼위일체>는 <구원자>를 보내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고로 <구원자>를 본 것이 <삼위일체>를 본 것이다.
2. <삼위일체>는 ‘신의 형상’이고, <구원자>는 ‘사람의 형상’이다. ‘형상’은 다르지만, 구원자는 삼위가 보내어 삼위의 뜻대로 행하니 ‘의미’는 같다. 고로 ‘하나’로 보는 것이다.
3. <나무>와 <열매>는 ‘모양’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다.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하면, 그 영양분이 <열매>로 간다. 고로 ‘하나’다.
4. <몸>과 <핵심 성 지체>는 연결되어 있다. 고로 <몸>을 본 것이, 그와 연결되어 있는 <성 지체>를 본 것과 다름없

다. 다만 ‘모양과 생김새’가 다를 뿐, ‘같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 ‘같은 살덩이’다. 고로 <몸>에게 잘해 주면 <성 지체>에게 잘해 준 격이 된다.

5.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의 과일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하셨다. <몸>과 <금단의 과일>은 연결되어 있다. 고로 <몸>을 만지다 보면, 점점 <과일>로 손이 가서 만지게 된다. 고로 아예 못 만지게 하라는 것이다. 만지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다 타락하여 죽을까 함이다.

6. 성자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키스>도 ‘하나의 성 문화’에서 온 것이다. <키스>는 ‘방법이 다른 하나의 성 관계’다.” 하셨다.

7.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하지 않아도 <이성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를 한 것이다.

8. <마음과 생각>은 ‘육’에 속해 있고 ‘육’과 연결되어 있다. 고로 이성을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도 <이성 관계 사랑>이다.

9. <창조 목적>이 무엇이나.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10.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여 뜻을 이룬 것이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11. <뇌>도 하나의 육의 지체다. ‘뇌’가 겉으로 나타난 것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 지체다. 신경 세포로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다.

12. 하나님은 <뇌>로, 곧 <마음·정신·생각>으로 참되게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자를 ‘이성 사랑을 다 해 준 자’로 대해 주신다.

13. <영>은 <육>과 같이 ‘성적’으로 결합하여 사랑하지 않는다. ‘뇌, 생각, 정신’으로 사랑하여 사랑을 이룬다. 생각하는 대로 사랑을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사랑이 이루어진다.

14. <영계>는 ‘생각의 파장 실상 세계’다.

15. <영>은 생각하면, ‘실체 영’이 그대로 시동이 걸려 행하게 된다.

16. <영>은 한계 안에서 ‘생각’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17. <육신>이 떨어져 있으면 손이 안 닿고 몸이 안 닿으니, 이성도 다스리고 나쁜 것도 다스린다. 고로 이성에서, 나쁜 것에서 <육신>이 멀리 떠나기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떠나기다. 그러나 <육>은 멀리 떠나서 해결돼도 <마음·정신·생각>이 문제다. <생각>이 이성을 생각해 버리니 문제가 발생한다. 고로 그 역시 멀리 떠나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가까이하여 일체 되면, <생각>도 이성을 멀리 떠나게 되어 이성을 다스린다.

18. 사람의 생각을 배워라.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혈액순환이 잘되고 기가 잘 돌면, 몸이 가볍다.

2. 온수로 따뜻하게 샤워하여 몸을 푼 후에 냉수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기가 잘 돌아서 몸이 가벼워진다.

3. 뇌의 정신과 생각이 기뻐하고 흥분하게 되면, 그에 따라 몸에도 기가 잘 돌아서 몸이 가벼워진다.

4. <사람>도, <땅에 묻힌 돌>도, <아직 안 본 지형>도 누구나 처음에는 감을 못 잡고 잘 모른다.
5. <인생 삶의 앞날>도 누구나 감을 못 잡고 잘 모른다.
6. <하나님의 행하심>은 굳이 인간에게 숨기지 않고 순리로 보여 주며 행하셔도,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을 못 잡는다.
7. <땅에 묻힌 돌>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다 파고 나서 자세히 보면,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는 잘 모른다. 그가 할 일을 다 끝내면 자세히 보아라.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신후사의 일>은 누구나 거의 모른다. 궁금하면 ‘그 날’이 왔을 때 자세히 보아라. 그것이 가장 완벽하다.
8.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그리도 많이 예언했다. 그러나 막상 ‘그 날’이 오면, ‘예언’과 ‘실제’는 달랐다. 선지자들도 거의 모르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한 것이다.
9.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온전하게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이 ‘그 예언’을 제대로 풀지 못하였기에, ‘예언’은 예상한 ‘실제’와는 아주 다르게 이루어졌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못 하는 것’을 하신다. 고로 한 가지만 하셔도 전지전능하시니, 우러러 섬김을 받으셔야 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일체와 생각이 같은 자’를 통해서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찾으신다.
12. 병을 고치는 것도 ‘삼위일체와 생각이 같은 자’를 대상으로 삼고, 그를 통해 고치신다.
13. 발에 감춰진 보화도 ‘삼위일체와 생각이 같은 자’를 대상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찾으신다.
14. 자기가 사랑할 상대를 찾을 때도 ‘자기 생각과 같은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야 자기 마음과 같으니, 같이 먹고 즐기고 기뻐하며 살기 때문이다.
15. <제비 족속>은 ‘제비’를 자기 상대로 찾고, <참새 족속>은 ‘참새’를 자기 상대로 찾는다.
16. 자기가 토끼 같은 마음과 생각이라면, 늑대·이리·염소·하이에나 같은 짐승을 자기 상대로 찾지 않는다.
17. 곡식밭에 난 풀을 뽑으며 김을 맬 사람은 ‘쟁기’를 찾고 ‘호미’를 찾는다.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는다.
18. 하나님도 ‘자기 상대’를 찾으신다. ‘센터마다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서만 쓰여지지 않는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때>에 맞추어 ‘개성’대로 쓰여진다.

<2015년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꿈에 계시로 보일 때, 지금은 ‘옛날 집’이나 ‘옛날 환경’이 없는데도 ‘옛것’을 보이며 계시하실 때가 있다. 이는 뇌에 옛것이 입력되어 있어서 옛것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계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옛것’을 보여 줘야 ‘현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옛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있는 것>을 보이며 계시해야지, <없는 것>을 보이면서 계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전능자>가 ‘인간’을 쓰고 나타나셔도 ‘그 사람의 실력’대로 나타나신다. 가령 <어른>이 ‘아이’를 통해 나타난다 하자. 그러면 글을 쓰거나 일을 하거나 ‘그 아이의 실력’만큼만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3. <영체>나 <혼체>가 옆에 있어도 ‘육’으로는 안 만져진다. 하지만 ‘자기 혼’이나 ‘자기 영’이 만지면 만져진다.

4. <육체>도 그러하다. ‘혼’과 ‘영’으로는 안 만져진다. 혼이나 영이 <육>을 만지려면 ‘육신’을 쓰고 만져야 만져진다.
5. <육>도 자기 존재대로, <영>도 자기 존재대로다. <육>은 ‘육’으로 만져야 만져지고, <영>은 ‘영’으로 만져야 만져진다. 만일 <육>과 <영>이 서로 만져진다면, 육계와 영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별의별 행위를 다 하게 된다. 고로 죽이기도 할 것이고, 사랑하기도 할 것이고, 사람끼리 대하던 대로 할 것이다. 고로 창조주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육과 영의 한계’를 정하여 창조하셨다.
6. 육, 혼, 영은 하나다. 그러나 각각이다. 육체, 혼체, 영체로 각각 존재한다. 고로 <자기 혼과 영>은 ‘자기 몸’인데도 ‘육’을 만지듯 만져지지 않는다. <혼과 영>을 만지려면, 영적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이나 ‘영’을 통해서 만져야 만져진다. 또한 혼과 영이 <육>을 만지려면 ‘육’을 통해서 만져야 만져진다.
7. <자기 육>이 기도하든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육신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 <자기 마음·생각·혼>을 쓰고서 영의 세계를 보면 ‘혼체들’이 보인다. 그때 ‘꿈 세계, 혼 차원의 세계’에 간 것이다. 그때 <자기 혼>이 ‘혼체들’을 만지면, ‘혼’끼리니 육신 만지듯 만져진다. 상대에 따라서 사랑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으며 즐길 수도 있다.
8. <혼>은 ‘마음과 생각의 영적 실존체’이고, <육>은 ‘마음과 생각의 보이는 실존체’다.
9. <자기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쓰고 ‘육신’을 만지면, 그 형체가 만져진다.
10. 그러나 <자기 마음·정신·생각>을 집중하여 ‘자기 육신’을 통해서 ‘상대의 혼’이나 ‘영’을 만지면, 그 형체가 안 만져진다. <육신>을 통해서는 ‘육’만 만질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같이 창조해 놓으셨다.
11. <자기 마음·정신·생각>이 ‘육신’을 쓰고, ‘육의 손’이나 ‘몸’으로 ‘혼’이나 ‘영’을 만지면, 형체가 잡히지는 않아도 <생각>으로 느껴지기는 한다. 상황에 따라서 ‘상대의 혼이나 영의 형체’가 뜨겁게, 혹은 차갑게 <마음과 생각>으로 느껴지기는 한다.
12. <영계의 것>은 ‘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낀다.
13. 자기 존재대로 활동하고, 상대가 되어 행한다. <육>은 ‘육의 세계’에서, <영>은 ‘영의 세계’에서 활동하고 상대가 되어 행한다.
14. <혼과 영>이 ‘육계의 음식’을 먹을 수는 있으나, 그 음식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존재대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느낄 뿐이다. <혼과 영>이 ‘영계의 음식’을 먹으면 없어진다.
15. 하나님, 성령님, 성자, 천사가 옆에 와 있다 해도 <육의 손>으로는 안 만져진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는 느껴진다.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느냐’는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6. 가령 옆에 <영체>가 와 있다 하자. 조금 의식하면 조금만 느끼고, 강하게 집중하면 강하게 느낀다. 정신을 강하게 일도(一到)하면, 마음으로 느껴져서 <영>과 대화도 할 수 있다.
17. <육의 세계에서 보이는 것>도 그 존재하는 것을 직접 봐도, 자기가 조금 믿으면 조금만 느낀다. 많이 믿으면 많이 느껴지고, 더 믿으면 확실히 굳세게 믿어진다.
18. <영의 것, 혼의 것>도 ‘마음과 생각’이 ‘육신’을 쓰고 강하게 믿으면, 강하게 느낀다. 거기서 더 생각을 강하게 하면, ‘자기 혼’이 그것을 보고, ‘자기 혼의 손’으로 그것을 만진다.
19. <이 세상 법>은 막아도 어기고 행할 수 있지만, <영의 세계>는 높은 차원에 올라갈수록 <혼과 영>이 ‘영의 법’을 어기고서는 살 수가 없다. <영의 세계>는 아예 법을 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

20. 자기 육체 혼체 영체가 다르듯, 성령님도 성자도 '본체인 영체'와 '혼체'가 다르다. 마치 <인간의 본체>는 '육체'이고 <마음체>는 '혼체'이듯, <성령님과 성자의 영체>는 '본체 형상'이고 <성령님과 성자의 혼체>는 '마음체 형상'이다.

21. <사람의 영체>도 '본체'가 있고, 마음과 생각의 실상체인 '혼체'가 있다. 이 <혼체>는 '자기 영체의 대상체'로서, '자기 육과 영의 매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22. <하나님, 성령님, 성자 본체>가 그 대상체인 '혼체'를 창조하여 쓰지 않으면, '본체'가 와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임금이 백성 가운데 직접 다니면서 통하는 격이 된다. <혼체>는 '육체'와 잘 통하고, '육의 것'을 잘 인식하고 이해한다. <육체>도 '혼체'와는 잘 통하고 잘 맞출 수 있다.

23. <인간의 육체>와 <영체>는 안 통한다. 서로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육체>는 '자기 육의 마음·정신·생각의 실상체'인 <혼체>를 통해서 <영체>와 통하게 된다. <혼체>는 '육체와 영체의 매개체, 중보체'다. <혼체>는 '자기 육'과도 잘 통하지만 '자기 영'과도 잘 통한다. <혼체>는 '영과 같은 체질'이라서 '영의 것'을 잘 배우고 느끼고, '자기 영'과도 잘 통하고 '다른 영'과도 잘 통한다.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좋은 세계>로 가느냐, <나쁜 세계>로 가느냐는 '자기 생각과 행실'에 따라서 좌우된다.

2.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자기 생각과 행실'에서 좌우된다.

3. 자기 손과 몸으로 물건이나 환경을 만들듯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생각하고 행하면서 자기 영을 하늘 나라 형체로 만들고 변화시켜 <천국>에 가게 하거나, 그릇 생각하고 행하여 <흑암>에 가게 한다.

4. 하나님은 사람도, 만물도, 신도 '한계'를 두고 창조하셨다.

5. 하나님은 사람도 만물도 신도 <한계>를 두고 창조하셨으나, <그 한계를 초월하여 행하는 방법>도 창조해 놓으셨다.

6.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기'다.

7.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으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신다.

8. <휴거의 차원>을 높여야 현재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차원'으로 간다.

9. <새로운 차원>으로 가야만, 그제야 과거보다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10.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와서 배우고 휴거되기 전에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이 얼마나 좋은지 전혀 모른다.

11. <차원을 높인 자>는 마치 황금을 많이 캐서 가난이 해결된 자와 같다. 고로 더 받고, 더 누리고, 더 기쁘고, 더 편하고, 더 알고, 더 괴로움과 걱정이 떠나고, 더 문제가 해결되고, 더 행복하다.

12. <육>이 변화돼야 <영>도 변화되어 '황금성 천국'에서도 '더 이상적인 곳'에 거하게 된다.

13. 월명동도 개발하여 차원을 높이니, 수백만 배 이상 좋다. 이와 같이 <차원>을 높이면 육도 영도 수백만 배 더 얻고 더 빛나게 된다.

14. <진리와 성령의 역사>다. '진리'를 알아야, 성령께서 '진리의 신'으로 임하시어 역사하신다.

15. 사탄, 마귀, 악한 자, 악평자들의 말을 듣고 그 글을 보고 믿으면, 자기도 여지없이 ‘악한 자’가 되고 ‘인사탄’ 취급을 받게 된다.
16. 그러나 자기가 절대 악을 불신하면 ‘공적’이 되고, ‘승리자’로 인정받고 그 차원으로 가게 된다.
17. 자기가 의로운 쪽으로 생각을 강하게 하면, 사탄과 악한 자의 영향을 안 받는다. 추운 날에 아예 문을 꼭 닫아 놓듯이, 악을 용납하지 않고 아예 마음 문을 꼭 닫아 버리면 틈이 없어서 마귀도 악한 자도 역사하지 못한다.
18. <악>을 용납하고 <의>를 조금 행하면, 스스로 쓰러진다.
19. <악과 불의>는 절대 마음에 용납하지 말고, 합리화하며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20. 마음이 철강같이 강해야 된다.
21. 성경의 율도 시험이 왔을 때 악어가죽같이 강하게 생각하고 행했다. 고로 사탄도 인사탄도 힐문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이에 하나님은 율에게 축복을 주셨다.
22. <복직된 아담>, <복직된 하와>가 되면 더욱 확실하다.
23.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는 더 사랑 받는다.
24. <악한 자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100% 불신하고, 자기 스스로도 <악과 불의>를 생각하지 말아라.
25. 사람이 ‘생각’만 의롭게 해도 의가 되어 영이 빛나고 그 대가를 받게 된다.
26. <생각>이 그리도 중요하다.
27. 생각하는 대로 몸으로 행하게 된다.
28. <생각>에 따라서 ‘선악간의 인생’이 좌우된다.
29. <생각>에 의해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30. 인생은 저마다 ‘생각’에 의해 자기를 만들기에 달려 있다.
31. 인생의 핵은 ‘생각’이다. 생각을 통해서 욕도 혼도 영도 만든다.
32.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신을 보아라. 인간을 보아라.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 구조를 보아라. 인체의 신비를 보아라. 자기가 생각해 보고 행해 보아라. 그리고 혼과 영으로 영계에도 가 보아라.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인간이다. 그리고 누가 창조했는지 깨달아라.
33. 삼위일체 외에는 ‘인간’을 창조할 자가 없다. <인간>은 오직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인간의 욕, 생각, 혼, 영’을 창조하신다. 다른 신은 없다.
35. <욕>은 ‘인간의 욕신’을 쓰고 만들어져 탄생된다. <영>은 ‘욕’이 태어날 때, 역시 ‘욕신’을 쓰고 만들어져 탄생된다. 그리고 <영>은 ‘지구’에서 자기 욕신을 통해 성장된다.
36. <욕>이 ‘태안’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 성장하듯이, <영>은 ‘지구’에서 ‘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의의 행실’을 통해 성장된다.

37. <육의 행실>이 악하면, <영>도 악하게 성장된다.

38. 육과 혼과 영을 위대하고 영원하게 만드는 자료는 ‘영원하신 삼위일체가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뿐이다.

39. 어떤 자는 ‘구원자’를 믿고 따르고, 어떤 자는 ‘우상’을 섬기고, 어떤 자는 ‘이단 종교’에 빠져 살고, 어떤 자는 ‘악’을 행하며 살고, 어떤 자는 ‘구시대 종교’에서 산다. <결, 육>만 봐서는 표가 안 난다. 그러나 <속, 그 혼과 영>을 보면 그 육이 사는 대로 그에 따라서 완전히 표가 확 난다. 어떤 자의 영은 ‘천국’에서 살고 있고, 어떤 자의 영은 ‘황금성 천국’에서 살고 있고, 어떤 자의 영은 ‘지옥 선고’를 받았고, 어떤 영은 ‘사망’에서 갇은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40. <육>이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의롭게 행하니, <영>이 그 의를 다 받아서 ‘빛나는 영’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다.

41. <육>이 악한 행위를 하며 사니, <영>이 그 악을 다 받아서 ‘악한 영’으로 변하여 살고 있다.

42. <생각>하는 대로 ‘뇌 세포’가 작용되듯이,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형성된다. 그리고 <영>이 변화되어 만들어진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 간다.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꿈에 보이는 것이 ‘자기 혼’이고 ‘타인의 혼’이다. 더러는 꿈속에서 ‘영들’을 보기도 한다.

2. <좋은 꿈>을 꾸면, 생시에 ‘좋은 것’을 얻게 된다.

3. <좋은 꿈>을 꾸려면, ‘육의 생각과 행실’을 좋게 해라.

4. <꿈>에서 ‘혼’이 찾은 것을 <생시>에 ‘육’이 실제로 찾아서 얻기도 한다.

5. <혼>이 차원 높여 지혜로운 혼이 되려면, <육>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신령하게 하여 차원을 높여야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꿈’으로도 계시하신다. 고로 꿈을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7. <육>이 생시에 행한 대로 <혼>이 영향을 받는다.

8. 선생은 ‘최고 좋은 것’은 거의 꿈으로 받았다. <사명>도 꿈으로 받았고, <월명동>도 이상세계가 될 것임을 20대에 꿈으로 받았다. 그리고 20년 후에 서서히 직접 행하면서 이상세계로 개발했다. <삼위일체의 깊은 뜻>도 꿈으로 깨달았고, <발에 감춰진 보화>도 꿈으로 받았다. 그리고 생시에 ‘사람’을 시켜서 직접 찾았다.

9. <보화>는 지구 세상에 수천, 수백 가지가 있다. 각자 자기에게 보화다. 이 사람에게는 보화라도 저 사람에게는 보화가 아닌 것도 있다. 이 남자에게는 ‘한 여자’가 사랑의 대상으로서 자기 보화이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여자’가 보화는 아니다. 그 여자가 ‘만사의 보화, 모두에게 보화’는 아니다. ‘해당되는 자에게 자기 보화’다. 이와 같이 <보화>는 ‘자기에게 보화’다.

10. 마귀에게 환경 보화는 ‘지옥’이지, ‘천국’은 아니다.

11.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자기 체질대로 악하게 사는 것’이 보화다.

12. 악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술 담배를 끊고, 자기 못된 성질을 버리고 착하게 살라고 하면 “그것은 보화의 삶이 아니다. 괴로운 지옥 같다.” 한다.

13. 자기 체질을 나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운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쁜 세계로 기울어져 살게 된다.
14. 꿈에 <자기 혼>이 ‘좋은 것’을 발견해도, <혼>은 그것을 생시로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 ‘혼이 꿈에 본 좋은 것’을 <육의 뇌>에 전달해 주면, <육>이 생시에 그것을 찾고 행해야 얻게 된다.
15. <혼>은 ‘생시에 자기 육이 행하듯’이 행하지 못한다. <혼>은 ‘자기 마음과 생각의 실상체’다. <마음과 생각>은 물건도 못 들어 주고, 물 한 잔 못 가지고 온다. 알기는 아는데 ‘실체의 것’은 못 가지고 온다. <혼>도 그러하다. <혼>은 다만 ‘꿈에서 먹고 행하고 사랑하는 것’은 한다. 그것도 혼끼리만 가능하다.
16. <육>이 “내가 고속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나 바쁘니 혼 네가 어떤 물건 좀 갖다 줘.” 하면, <혼>은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과 생각의 실상체’라서 생시에는 물건을 못 갖다 준다.
17. <영>도 혼같이 평생 생시에서는 ‘물건 한 개’를 들어다 주지 못한다.
18. <생시>에 ‘혼과 영’이 행하려면, ‘육신’을 쓰고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육신’을 통해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 초능력적으로 행하게 된다.
19. <자기 혼과 영>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함께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하도록, <자기 육신>이 늘 ‘자기 혼과 영’을 부르며 함께 하자고 해야 된다.
20.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의 존재자이시다. 영체이시다. 고로 이 세상에서 행할 때는 <신 자체>로 ‘육신’같이 행하지 않으시고, <신의 한계 안>에서만 ‘신적’으로 행하신다. 이 세상에서 <신의 한계>를 넘어서 행하실 때는 ‘육신’을 쓰고 ‘육신’을 통해 행하시며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신다. 또한 비, 바람, 구름 등 ‘각종 만물’을 통해 행하신다.
21. 전능자 하나님은 ‘영적 무기’로 인간의 육신을 때리며 심판하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육적 무기’를 이용하여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하신다.
22. <영>은 ‘지상의 기구나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 ‘영의 무기, 영의 칼과 몽둥이’로 때린다. 그래도 <육신>이 그 영향을 받아서 아프고 고통을 받는다. - 다 겪어 보고 말하고, 그의 행하심을 보고 말한다.
23. 꿈에 <자기 영이나 혼>이 영들에게 맞으면 <육신>도 그 영향을 받아서 아프기까지 한다.
24. 자기를 육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자가 있을 때, 영 급이 높은 자들은 ‘자기 영이나 혼의 무기’를 사용하여 처세한다. 성경에도 엘리사가 ‘영적 능력’을 행하여 육의 적들을 처단한 것이 나온다(왕하6:8-23).
25. 영 급이 높은 자들은 ‘영과 혼의 무기’로 <육적으로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멸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축복할 자들>을 흥하게도 하며, 자기 사명대로 행한다.
26. 사명자가 ‘권세’로 기도하면, 악한 자들이 심판받기도 한다.
27. <혼과 영>은 신령해서 영계에서 자세히 보고, <자기 육>이 잘 모르는 것을 알게 하여 생시에 <육>이 직접 행하게 해 준다.
28. 특히 <혼>은 꿈에 ‘나쁜 일’과 ‘좋은 일’을 계시받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여, 생시에 <육>이 지혜롭게 판단하여 ‘나쁜 일’은 안 하게 하고 ‘좋은 일’은 행하게 한다.

1.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계>를 두고 창조하셨다. ‘생명의 수한’도 <한계>를 두고 창조하셨다. - 이 <한계>를 넘어 질서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시고, 무력을 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2. 과학·의학·정치·경제·종교 등 수백만 가지를 <한계>를 정해 놓고, 인간으로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다.
3. 인간의 지능, 생각, 재능, 기술, 행하는 것도 생명의 수한같이 <한계>가 있다.
4. <한계선>까지만 해도 인간으로서 충분히 ‘신’같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5. 육·혼·영이 <한계선>까지만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충분히 ‘천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6. <육>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영계’와 ‘하늘나라’는 못 간다.
7. 구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의 육신>이 홀연히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하며 믿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오지도 않고, 믿는 자들도 ‘육’을 가지고는 단 한 명도 천국에 못 간다. <성자 본체>가 다시 오셔서 ‘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 쓰고 행하시고, <육>이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행한 것을 <영>이 다 받아서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휴거>는 ‘오직 하나님과 성자가 시대 구원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된다. 이 말씀이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로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8. 2000년경이 되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며 지구촌의 수십억 명이 기다렸다. 그러나 ‘아닌 것’은 지구 세상의 73억 명이 기다려도 못 온다. 믿고 기다린다고 해서 죽은 자가 부활되겠느냐.
9. 믿고 기다리되, 온전하게 확실히 믿고 행하며 기다려야 믿고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진리다.
10. 아직도 모르는 저 기성인들은 “<육>이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하고 가르친다. 원시인 신앙이다.
11.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했다. <자기 영>이 직접 영계에 다니면서 보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역지로 풀고 그릇 생각하는 자들은 ‘육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고 있다. 고로 <무지>로 인해 ‘시대 주를 맞는 데’ 실패하고 망했다.
12. 때가 되어 하나님은 벌써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서 <재림과 휴거>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게 하여 <육적 휴거>를 지나 <영적 휴거>를 이루시며 <휴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육’이 휴거된다고만 생각하니 ‘영’이 휴거돼도 모른다.
13. 어느 시대든지 <아는 자>만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가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외치고 끝난다. <모르는 자>는 모르고 살다가 끝난다.
14. 하나님은 바닷물에도 한계를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만일 바닷물이 한계를 넘어 ‘바다’가 됐다가 ‘육지’가 됐다가 하면, 땅의 인생들과 생물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의 존재자’로서 <한계>를 넘어서 행하지 않고 공의롭게 행하신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한계>를 넘어서 ‘땅의 육신’이 되어 다니지 않으신다.
17. 하나님은 ‘남성’으로서 <한계>를 넘어 ‘여성’이 되어 행하지 않으신다. 오직 ‘상천하지의 남성의 존재자’로서 행하신다.

18. 성령님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한계>를 넘지 않으시고 오직 ‘여성의 존재자’로서만 행하신다.
19. 모르는 기성인들은 하나님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라고 가르친다. 중성은 끔찍하다. 무섭다.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망령되이 가르친다.
20. 하나님을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되는 존재로 가르치면, <한계>를 넘어서 비진리로 가르치는 자다. 고로 이단이다.
21. 이단이 무엇이나. 모르는 것이 이단이다. 모르고 믿는 것이 이단이다.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다.
22.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괴상한 존재자’로 가르치고 있다. 참담하다.
23.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잘못 가르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생각은 틀렸다.” 하며, ‘그 미련한 생각과 바보 같은 생각’을 깨부수고 제대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도 모르면, 화가 나서 홀랑 벗고 다 보여 주며 가르칠 것이다.
24. 하나님은 <그>, 곧 <시대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기성의 그릇된 성경 해석, 이단의 그릇된 가르침, 무지’를 다 깨부수고, 오직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신다.
25.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하셨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중성의 존재자’이면, 인간들도 모두 ‘중성’으로 창조했을 것이다. 원인 결과의 세계다.
26. 한때 기성인들은 “하나님은 에너지처럼 존재한다. 존재 형상은 없다. 태양빛 같다.” 하고 가르쳤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옆에 있으면 다 타 죽겠다. 참으로 미련하다. 답답하다.
27. 미개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 미개하게 가르치는 종교다. 소경이다. 불구자다.
28. 사랑 세계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한계>를 넘지 못하게 창조하셨다.
29. <여자>는 ‘상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고, <남자>는 ‘상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다.
30. <여자끼리 이성적 사랑을 하는 동성애>와 <남자끼리 이성적 사랑을 하는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난 사랑의 행위다. 고로 죄다. 미련하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사는 자다. ‘법’을 벗어나면 ‘심판’을 받는다.
31.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매일 심판을 받는다.
32.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시키셨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행하는 자는 <과정>에서도 형벌과 죽음의 길을 가는 자이고, <결과>도 형벌과 죽음이다.
33. <구약역사>도 4000년 정한 때 한계까지 펴냈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신약역사>도 2000년 동안 한계까지 펴냈다. <새 역사 휴거 역사, 성약 섭리역사>는 ‘성자’가 다시 오셔서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1000년 동안 행하신다.
34. <신약역사>는 구약역사보다 상상도 못 하게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셨다. ‘종’으로 대하다가 ‘자녀’로 대하시며 2000년 동안 역사하셨다.
35. <성약역사>는 신약역사보다 상상도 못 하게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셨다. ‘자녀’로 대하다가 ‘신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며, 신부들에게만 해당되는 <휴거 역사>를 펴냈다. 이 역사는 1000년 동안 땅에서 ‘육’으로도 하고, 천국 황금성에서 ‘영’으로도 한다.

36.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도 ‘그 시대 주관권까지’가 한계다. 욕이 살아 있는 기간까지는 욕으로 하고, 욕이 죽으면 영으로 한다. 그다음 시대가 되면 ‘보낸 자’가 새롭게 바뀐다. 새롭게 하니, ‘그 시대에 욕신이 살아 있는 자’ 중에서 ‘택한 자, 예정된 자, 삼위일체가 직접 만들고 가르친 자’를 가지고 행한다.

37. <성약역사>는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진행된다.

<2015년 7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한계>를 정하여,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다. 또한 <한계를 넘어서 행하는 법>을 주셨다. 그 법을 배우고 알아야 <한계>를 넘어서 행할 수 있다.

2. 꿈에 <혼>이 좋은 것을 보고 왔어도 ‘혼의 한계, 영의 한계’가 있어서 <욕의 세계>로는 못 가지고 온다. 이 한계를 넘어서 행하려면, ‘영의 한계 너머에 있는 욕신’을 쓰고 행해야 된다. 곧 ‘혼이 꿈에서 본 것’을 ‘자기 욕의 생각’을 통해 ‘욕’에게 전해 주어, <욕>이 생시에 그것을 찾게 한다. 이같이 한계를 넘어서 행하려면, ‘그 세계, 그 주관권에 있는 상대방’을 쓰고 해야 된다.

3. <욕신>은 ‘욕의 한계’를 못 넘으니, <영의 세계>에 못 간다. 고로 <욕>은 천국도 낙원도 지옥도 못 가 보니, <혼>이나 <영>을 시켜서 ‘욕의 생각’이 ‘혼이나 영’을 쓰고서 가야 된다.

4. 하나님도 영이시다. 고로 ‘영의 한계’를 넘어 <욕의 세상>에 와서 그 뜻과 목적을 이행하려면, ‘땅의 욕신’을 쓰고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 행하는 법’을 주셨다.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간들 속’에는 순리로 못 오신다.

5.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땅의 인간’을 쓰고 이 세상에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그리함으로 하늘에서도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영이시니, ‘땅의 합당한 자의 욕신’을 쓰고 사랑의 역사도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루신다.

6. 천사도 영이다. 영끼리는 ‘영의 한계’까지만 행한다. 천사가 ‘욕의 일’을 하려면, ‘욕신’을 쓰고 행해야 된다.

7. 천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천사가 옆에 있어도 찾고 대화해야 된다.

8. <욕신>끼리도 ‘자기 욕의 주관권의 한계선’을 넘어서 행하려면, ‘그 세계, 그 주관권에 사는 사람의 욕신’을 쓰고서 그를 통해 해야 된다.

9. 모두 ‘자기 주관권의 한계선’까지는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상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10. <욕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의 것>을 알려면, ‘자기 혼’이나 ‘영’ 불러서 물어보거나 시키면 된다.

11.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만 보고 알 수 있다. 고로 ‘자기 혼’이나 ‘영’에게 물어보거나 시켜도 <한계>가 있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물어보아라. 그러면 더 합당하게 가르쳐 주신다.

12. <휴거된 자기 영>을 써라. 자기 영이 휴거됐는데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잊고,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그러나 <휴거된 영>이어도 이 세상에 와서 행하려면 ‘자기 욕신’을 써야 된다. 고로 <자기 욕>이 더욱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자꾸 기도하며 <자기 영>을 부르고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욕신>이 더 확실히 알고, 믿고, 굳건하고, 더욱 변화되어 ‘영 휴거의 차원’을 높이게 된다.

13. 매일 공부하듯 ‘자기 혼과 영과 대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대화’다.

14. <자기 욕>은 ‘자기 혼과 영’을 쓰고 행하고, <자기 혼과 영>은 ‘자기 욕신’을 쓰고 행해야 된다.

15. 하나님은 만물들로 만물을 창조하게 명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들로 인간을 창조하게 명하시며 인간을 창조하셨다. - 이는 이 땅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땅에서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택하여, ‘그 욕신’을 쓰고 말씀하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사랑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16.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보내어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룰 상대적 한 틀, 시대 아담과 시대 하와’를 뽑아서, 성자와 성령이 ‘그 욕신’을 쓰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17. <구약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던 사랑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성약역사’에 행하셨다. - 그 뜻은 ‘땅에서 창조 목적을 이룰 성자와 성령의 상대적 한 틀,’ 곧 ‘복직된 아담과 복직된 하와’로부터 이루어 나간다. <복직된 아담과 하와>는 천주 앞에 완전히 조건을 세우고 행함으로 ‘휴거의 처음 열매’가 된다. 그리고 사망권에 있는 자들에게 <시대 말씀>을 주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신부’로 단장시킨다. 그리함으로 <복직된 아담과 하와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휴거 역사의 총책임은 <성자>로서, 성자가 ‘구원자의 욕신’을 쓰고 행하신다. 그 터전 위에 <성령님>이 ‘구원자 앞에 세워진 여자 한 명’을 ‘상징체’로 뽑아서, ‘그 욕신’을 쓰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로써 우주 창조 이후 137억 년 만에 구원역사 6000년 동안 이루려던 창조 목적을 이룬다.

18. <구원자>는 ‘후 아담’으로서, 먼저 자신이 사탄을 이기고 모든 조건을 세워 복직된다. 그 후에 ‘땅의 상대 격인 하와’를 뽑아서 가르쳐, 그 사람을 ‘자기 뼈 중의 뼈’로 ‘살 중의 살’로 만든다. 그리고 구약 에덴동산의 하와같이 사탄에게 당하지 않도록, ‘시대 하와’를 미리 가르치고 사탄을 이기게 하고 조건을 세우며 만들게 한다. 그리고 ‘시대 하와’로 세운다. <시대 하와>는 하늘에서 볼 때는 ‘성령의 상징체’다. 고로 성령님이 그 욕신을 쓰고서 행하신다. 그리고 <시대 하와>는 땅에서 볼 때는 ‘분체의 분체’다. 고로 시대 하와는 ‘주’를 증거하며 ‘주의 몸’이 되어 행한다.

1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20.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자녀권’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창조 목적>은 ‘삼위일체의 사랑의 소유권’이 되는 ‘절대 사랑의 대상체, 신부’를 만드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자녀권 신약역사>가 끝나고, 순리와 질서와 때에 의해 <성자 재림 역사>를 시작해 ‘사랑의 신부 역사’를 행하셨다.

21. 절대 <성자 재림 역사, 휴거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룰 역사>로 와서 <시대 구원자>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며 행해야 <근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도전>은 현재보다 높은 데 있다.

2. <현재>는 ‘과일 껍질’이다. 현재에서 <도전>하면 ‘과일 껍질을 깎는 것’이다. 고로 도전해야 먹는다.

3. <현재>는 ‘시작’이다. <도전>은 ‘가는 것’이다.

4. <현재 위치>는 ‘먹고 싶은 음식을 보고 있는 격’이다. <도전>은 ‘행하는 것’이니, 보고만 있지 않고 먹게 된다. 고로 도전해라.

5. <현재>는 ‘양이 안 차는 위치’다. <도전>은 ‘양이 차고 만족한 단계’다. 그러다 성장하면 또 양이 안 찬다. 고로 또 도전해라.

6. <현재>는 ‘과일나무에 높이 매달려 있는 과일을 보고 그 밑에 서 있는 격’이다. <도전>은 ‘나무를 오르는 것’이다. 오르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산포도, 으름, 다래를 따게 된다. 도전하면 먹는다.

7. 힘들게 도전하면, 과정 중에 힘이 없어서 힘들다.
8. 요령껏 도전이다.
9. <생각>이 '신'이다. 정신일도 하여 생각을 집중하면, 높은 곳도 낮게 보여 자신 있고, 큰 것도 작게 보여 자신 있다.
10. 만사의 모든 일은 도전하기다. 그래야 이루어진다.
11. <도전>을 좋아해야 그 일이 돋보여서 뜻이 되어 쉽게 항해한다.
12. 높은 암벽도 타는데, 평지에서 '생각'을 움직이고 '손발'을 움직이고 행하며 도전하지 못하느냐.
13. <도전자>는 자꾸 기어오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자꾸 기어올라 보려 한다.
14. <도전>도 자꾸 해 버릇한 자가 한다.
15. <현재 위치>는 '붉은 참깨를 갈려고 틀에만 놓고 있는 격'이다. 참깨 틀을 손으로 돌려야 참기름이 나오는데, '돌리는 단계'가 <도전>이다. 틀을 돌리는 대로 참기름이 줄줄 나온다. 틀을 돌리지 않으면 붉은 참깨 냄새만 맡고 끝나게 된다.
16. <현재 위치>는 '말씀을 듣는 단계'다. <도전자>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으려 하는 자'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그다음 도전 단계에 오른 자>다. 고로 도전해라.
17. 기성은 도전할 것이 없어서 힘이 있어도 앉아 있다. 도전해도 형제나 자녀들이나 만나니, 도전할수록 맥이 빠진다.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마음과 생각> 자체로 혼자서는 못 한다. <육>과 함께 해야 된다.
2. 인생 혼자서는 못 한다. 자기 <육>과 <혼>과 함께 해야 된다.
3. 인생 혼자서는 못 한다.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함께 해야 된다.
4. 혼자서 하는 자는 '육적인 일'만 하게 된다. 고로 '육'에서 끝나게 된다.
5. 사랑을 혼자서 못 하듯이, 상대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하기도.
6. 구원도 <구원해 주는 자> 혼자서는 못 한다. <구원을 구하는 자, 구원받을 자>가 있어야 된다. 또한 <구원받을 자>도 혼자서는 못 한다. <구원자>가 있어야 깊은 함정에서 나오듯 사망에서 나와 구원받는다.
7. <구원자>는 하루 종일 '동쪽'에 있고 <구원받을 자>는 하루 종일 '서쪽'에 있으면, 둘 다 아무것도 못 한다. 둘이 하는 것이다.
8. <성령님>도 혼자 있고 <자기>도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한다. 성령님과 자기가 함께해야 잡아당겨 주고, 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사랑이 일어나 사랑하게 되고, 감사도 일어나 감사하게 된다.
9. <육신 자체 에너지>가 있고, 상대 세계인 <정신세계,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세계다. 그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다.

10. <육적 에너지>는 ‘각종 음식’이다. 고로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어 육적 에너지가 생기면,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소모되고, 일하면서 각종으로 소모된다.

11. <에너지>로 건강이 좌우된다. ‘마음과 생각’도 그러하고, ‘몸’도 그러하다. ‘영’까지 그러하다.

12. <육신>이 힘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3. <마음과 생각>도 힘이 없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4. <마음과 생각, 영>이 힘이 없을 때 자체로 에너지를 받으려면, 기도하여 공급받고, 성령으로 공급받고, 말씀으로 공급받는다.

15. 사람은 ‘상대의 행위’를 보고서 알기는 아는데, 둔감하니 아주 적게 느끼고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예리해서 ‘사람의 행위’를 느끼신다. 자기가 행하면서 느끼듯, 뇌에 접목시켜 느끼듯 다 느끼신다.

16. 사람도 영적으로 신이 될 때는 ‘상대의 행위’를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

17. 신경은 전기와 같다. 고로 <생각>으로 가열하면 뜨겁고, <생각>으로 식히면 바로 식는다.

18. <육의 생각>이 ‘영의 차원’에 가야 더 느낀다. 아예 ‘혼’이 느끼고 ‘영’이 느껴야 근본을 느끼게 된다.

19.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는 뜨겁다. 그러다가 식는다. 고로 뜨거울 때 행해라. 식으면 또 받게 해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가도 일하다 보면 배가 꺼진다. 배가 꺼져 힘이 없기 전에 일해라. 그러다가 배가 꺼지면 또 밥 먹고 또 일해라. 신앙의 삶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일을 할 때나 사랑을 할 때 열불 나고 흥분되다가 끝나면 식기 마련이다. 고로 사랑이 식기 전에 사랑에 관한 각종 일을 해라. 그러다 사랑이 식으면 또 사랑하기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성령집회 때나 열불이 나고 흥분이 됐을 때 전도하고, 강의하고, 관리하고, 각종 일을 하기다. 그러다 식으면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령을 받아라.

20. 할 때 해야 된다. 식으면 굳어서 다시 하기가 어렵다.

21. 본인이 하게 해 주어라. 그러면 오래간다.

22. 네 할 일을 네가 해야 된다.

23. 세상 사람들도 하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한다. 하물며 전능자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도, 성자도, 너를 구원해 준 자도 “때가 되었으니 행해서 얻어라.” 하는데도 안 할 것이냐.

24. 해야 된다. 눈이 오면 정원의 눈을 치우듯, 비 오면 비를 안 맞게 하듯, ‘신앙의 자기 할 일’은 자기가 꼭 해야 된다.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상상>은 <실체>를 초월한다.

2. <상상>은 더 크고 더 푸짐하다.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다. 더 희망을 주고 더 호기심을 일으킨다. 고로 상상하고 행하면, 더 행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3.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존재는 하니, 보지 않고도

상상하며 믿고 사랑하고 생각하며 행해라. 그러면 보고 행한 자보다 훨씬 더 희망차고 호기심에 마음이 불타서 더 많이 행하여 더 얻게 된다.

4.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 주도 그러하다. 고로 못 봐도 상상하며 믿고 사랑하고,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날마다 실감하면서 희망과 사랑에 불탄다.

5. 존재는 하고 있으니, 못 보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행해라.

6. <네가 원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존재하고 있으니, 생각하고 상상해라. 그러면 ‘생각과 상상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실체와 거의 비슷하다. 실체를 안 봐어도 평소에 다른 데서 봤기 때문이다. 그것과 비교해서 보는 것이다.

7.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을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봤다면, 상상을 하더라도 실체와는 다르다. 그러나 평소에 다른 데서 그 종류의 것을 봤다면, 그것을 상상했을 때 실체를 보는 것과 같다.

8. 가령 동물원에서 ‘치타’를 한 번 봤다 하자. 그러면 지구 세상의 어느 나라의 치타든지 그와 같다고 생각하며 상상해라. 그러면 ‘그 형상’이 생각으로 느껴진다. 그것이 실체를 본 것과 같다.

9. <전에 본 것>을 상상하면, <실체>를 보는 것과 다름없다. <같은 존재물>은 <같은 형상과 모양>이다.

10. <영의 세계>를 상상하다가 들어가면, ‘영의 존재물’이 더 확실하고 완전하게 보인다.

11. (성령) 내가 한 말을 피할 수가 없다.

12. 보고 싶으면 ‘예전에 봤던 것, 화면으로 봤던 것’을 상상해라. 눈을 감고 ‘예전에 본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면 화면이 나타나 보인다. 그때 불러라. 그렇게 실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의 일’을 해라. 그리고 ‘흔’으로 느껴 보아라.

13. <상상>은 ‘정신세계’다. 고로 <실체>보다 더 이상적으로 높게 생각한다. <실체>는 ‘육의 세계’다. ‘육의 세계’는 항상 ‘정신세계’보다 낮다.

14.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곳이 다 극도로 아름답고 엄청나지 않다. 선진국이나 한 나라의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좋은 환경이 아니듯, 천국도 그러하다. <천국>은 천층만층으로 차원이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다.

15. <천국>의 모든 곳이 다 ‘황금 집 환경’이 아니다. ‘황금 집 환경’이 따로 있다. 상 중 하로 쪼개져 있다. 그 세계 안에서도 또 상 중 하로 각각 쪼개져 있다. 세상에서 <자기 육>이 얼마나 하나님과 구원자의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여 구원받았느냐에 따라서 <영>도 변화되고, <영이 거할 천국의 위치>가 정해지고, <영이 거할 천국의 집>이 지어져 ‘상 중 하 세계’로 쪼개져 가고, 그 세계 안에서도 또 ‘상 중 하’로 쪼개져 간다. 마치 저마다 수고한 대로 집을 지어 놓고 이사 가는 격이다.

16. 세상에서도 개발한 것이나, 집이나, 작품이나, 그림이나, 농사나, 회사나, 공장이나, 신앙이나 자기가 ‘그 면에 주력하여 전적으로 행한 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육의 세계에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영의 세계의 것>을 만들어서 <자기 영>이 가지고 있다. 평생 ‘그쪽 면’만 행한 자는 ‘그 면의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듯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그쪽 면에 전적으로 주력하여 행하되, ‘자기 사명’을 가지고 할 때 더 많이 만들어서 갖게 된다.

17. <인물>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운동하고 노력하여 만들면 완전히 달라진다.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 좋아진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도 ‘자기 육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구원자의 말씀대로 행하며 노력하고 수고하는 대로’ 달라져 이상적으로 변화된다.

18. <영의 세계, 영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자기 육’이 행하면서 바뀌야 된다. 영계에 간 후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라.

19. 기도하고 신령하게 만들어서 <자기 영의 세계, 영의 운명>이 어떻게 좌우되는지 보면서 ‘육’을 가지고 부지런히 행해라. 보면서 행해야 훨씬 더 이상적으로 할 일을 하게 된다.

20. 운동하고 관리해서 자기 몸을 만들듯, ‘영의 것’도 지속적으로 행하며 만들어라.

21. 조금 하면 ‘개집’을 만들고, 많이 하면 ‘사람이 살 집’을 짓는다. 거기서 더 하면 ‘궁궐 같은 집’을 만든다.

22. 궁궐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는지 아느냐. ‘육의 것’도 그러하고 ‘영의 것’도 그러하다.

23. 조금 해서 많이 얻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가끔씩 자기에게 찾아오는 행운이다. 노력하고 수고하여 매일 대가를 지불하고 만들어서 얻어라.

24. 여름에 때가 되어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샘을 파라.

25. 월명동은 처음에 물이 없어서 여름 장마 때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호수에 채우고 수영했다. 지금은 100m씩 샘을 깊이 팠기에 비가 안 와도 하루에 300톤씩 물이 나와서 차고 넘친다. - <신앙>도 그렇게 하기도.

26. 400m의 높은 산에도 땅을 파면 물이 나온다. 이와 같이 <신앙>도 <인생 삶>도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27. ‘하면’ 오늘 얻고, ‘안 하면’ 평생이 가도 못 얻는다.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받았어도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면 누릴 줄 모른다. 고로 아직 못 받았어도 ‘받으려고 희망으로 사는 자’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

2. 소풍 장소에 도착해서 앉기 전에, 천막을 치기 전에,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 전에 ‘먼저 그곳의 뱀을 잡아 없애기’다. 그렇지 않으면 뱀에 물려서 모든 일이 허사가 된다.

3. 기도하기 전에, 각종 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사탄·마귀·귀신들을 멸하기’다. 그리고 나서 ‘이상세계를 이루기’다.

4. ‘먼저 자기 마음의 잡초, 잡생각, 사탄, 악을 없애기’다. 그리고 나서 ‘이상세계를 이루기’다.

5. ‘먼저 회개하고 이상세계를 이루기’다.

6.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뱀, 가시나무, 엉겅퀴, 썩는 것들’을 다 없앴다. 그리고 나서 개발하여 ‘이상세계’를 만들었다.

7.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땅’을 샀다. 그리고 나서 개발하여 ‘이상세계’를 만들었다.

8.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먼저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겨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부터 ‘이상세계’를 시작했다.

9. <먼저 해야 될 것>을 못 하면, 해 놔도 상대에게 빼앗긴다.

10. 먼저 ‘자기에게 해를 주는 뱀’을 처리해야 ‘해’를 받지 않는다.

11. 뱀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뱀과 함께 살게 되어 뱀도 뱀만큼 주권의 범위를 차지하고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사탄·마귀·악한 자들·해를 주는 자들’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12. 먼저 ‘땅’을 사야 땅 주인들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개발’이다.

13. 월명동도 전체를 샀기에 이제는 아무에게도 제재를 안 받는다.

14. 먼저는 ‘자기 몸의 죽음에 이르는 병’부터 수술하고 치료해서 없애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랑’도 하고 ‘집’도 짓는 것이다.

15. <육의 지능>이 아무리 높아도 <영의 지능>이 높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지능이 높은 자’를 따라갈 수가 없고, 아예 ‘그와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지도 못한다.

16. 자기꾼도 ‘자기 생각 차원’대로만 알고, ‘상대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며 행한다. 고로 없애야 된다.

17. 사탄과 마귀는 ‘짐승의 생각, 악한 생각’ 외에는 모른다. 고로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를 주며 만족한다. 고로 없애야 된다.

18. 악한 자, 불순종자들도 ‘자기 지능’대로만 알고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악하게만 행한다. 해를 주면 상대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르고 행한다. 고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

19. 사탄도 악한 자들도 ‘자기 주관, 자기 뇌 차원, 자기 지능’대로 산다. 고로 자기들로부터 해를 당하는 의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하지 않고 의인들에게 해를 주며 악을 행한다. 고로 멀해야 된다.

20. 뱀과 짐승은 자기 지능대로, 자기 머리에 차 있는 대로만 생각하며 사람을 물고 잡아먹는다.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워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능’대로만 행한다. 고로 잡아 없애야 된다.

21. 사람들은 ‘자기 지능’대로만 행하며 자기만족을 위해 채우려 하지, 당한 상대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억울해하는지 모른다. 고로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어 고통을 주신다.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 작은 자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미리 환경을 다듬고 만들어 뒀으니, 작은 자라도 시키면 하게 된다. 그리고 잡고 함께해 주니 할 수 있다.” (하셨다.)

2.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창조 목적>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사랑의 대상이 될 인간’을 창조하려 하니, 그 뜻을 반대했다. 결국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쫓겨났다.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어, 지상에 하나님이 택한 ‘아담과 하와’를 꾀어 타락시켰다. 하나님은 왜 루시퍼를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상’으로 쫓아내셨을까? ‘지상’으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영원히 심판하여 ‘지옥’에 보내셨다면, 루시퍼가 아담과 하와를 꾀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3. 죄를 지었다고 즉시 영원한 심판을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루시퍼’를 영원히 심판하여 즉시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1차로 <회심 기간, 회개 기간>을 주시려고 ‘지상’으로 쫓아내신 것이다. 지상에서 잘못된 만큼 ‘죄값’을 받게 하였고, 아담과 하와를 지키게 하면서 ‘회심 기간’을 보내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루시퍼는 <회심 기간>에 못 참고 또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하와를 꾀어 타락하

게 함으로 하늘의 뜻을 방해했다. 이에 하나님은 루시퍼를 영원히 심판하여 ‘지옥’에 가두셨다. 이 인봉 떼 자 없다.

4. 만일 루시퍼가 ‘지상’으로 쫓겨났을 때 또 죄를 짓지 않았다면 <흑암 주관권>에만 있고,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쫓겨난 땅’에서 하와를 꺾어 타락하게 함으로 또 죄를 지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갔다.

5. 루시퍼는 <지옥>에 갇혔지만 루시퍼와 같이 행하는 족속들이 또 인간들을 꺾고, 유혹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힌다. 그 족속들 역시 1차 <회심 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6. 사람도 죄를 지으면 1차로 ‘그 위치에서 탈락’되고, 거기서 회개하도록 ‘회심 기간’을 주신다. 그때 거기서 회심하면 그 단계에서 산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거기서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고로 사망으로 끝나게 된다.

7. 지구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키고, ‘삼위일체’가 지키신다 생각하고,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사탄을 물리치며 행해야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내가 하겠다!” 하며 ‘책임을 지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신다.

9. 책임을 진 자가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책임을 진 자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서 못 한다.

10. 나는 날마다 지구, 세계, 민족, 섭리사를 내가 책임진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11.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도 내가 ‘땅의 것’은 책임지고 할 테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행하시라고 하며 지금까지 책임지고 행해 왔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느라, 인생 70년이 다 갔다. 그래서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

12.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셨으니, 그래도 조금은 좋으시지요?” 하니,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루어 조금 좋으려고 137억 년 걸려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고, 6000년 걸려 구원역사를 펴 왔겠느냐.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었으니, 더 없이 충만하게 좋고 기쁘다. 너 정말 큰일을 한 것이다.” 하셨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했다. 이에 하나님은 “작지만 큰 일 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네가 거기에 ‘연료봉’을 가져다 끼웠으니, 연료봉이 크기는 작지만 얼마나 큰일을 한 것이냐. <육 재림>이 아니고 <영 재림>이라고 가르친 것, <성자 본체 재림>이라고 가르친 것, <육 휴거>와 <영 휴거>는 무엇인지 가르친 것 이것을 책임지고 가르쳐서 사람들의 뇌에 끼워서 행하게 했다. 고로 정말 큰일을 했다.” 하셨다.

13. 성자 <사랑하는 내 신부들이 자기 스스로는 희망하고 소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다 해 주고 떠나고, <나 성자가 신부들을 사랑하니 내가 너희에게 해 주고 싶은 것>을 알아서 다 해 주고 떠나니, 때가 되어 떠나는 이때, 미련도 없고 기쁘고 만족하여 얼마나 좋아서 뿔뿔 날아가겠느냐.

14.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란,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알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과 싸울 것도 없다.

15.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면, 그 법을 어긴 죄로 그때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 회개하고 견디고 기도하며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16.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 믿음을 지키고 살면, 사탄과 싸우지도 않고 이긴다.

17. 쭈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열나게 뛰든지,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든지, 밤새워 기도하든지, ‘행해야’ 이긴다.

<2015년 7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공의롭게 해야 ‘양쪽’이 다 산다.

2. 말씀 자료를 줬어도 크게 못 쓰니,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3.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는 ‘크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고 그 사람을 택한다. 그러나 ‘작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 주니 별로로 본다.

4. 풍선이 풍성하게 커도 바람을 조금만 넣으면 작게 보인다. 작아도 바람을 많이 넣으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인다. 섭리 사도 개인도 그러하다.

5. 기도를 깊이 하는 자에게는 기도하기 전에 영적 상황을 보여 주고, 기도가 약하거나 신령하지 않으면 기도한 후에 보여 준다.

6. <목회자 배치>를 잘해야 된다.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세워야 된다. 목회자를 배치했는데 교인들과 안 맞으면,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틀린 글씨를 교정하듯이 ‘목회자가 고칠 부분, 교인들과 안 맞는 부분’을 교육해 주어 <고쳐서 계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교체하여 맞는 교회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 목회자 본인도 고쳐서 그곳에서 계속할 것이냐,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목회자가 고쳐서 계속하고 싶어도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교역자를 원해야 된다. 두 가지 방법 다 장단점이 있다.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 파악해 보기다. 목회자 사명이 안 맞으면 목회를 하기보다 ‘행정 일, 각 기관의 지도자’를 하면 된다. 목회를 맡은 후에 문제가 있는데,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일단 더 해 보자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됐어도, 그 교회와 교인들과 잘 안 맞으면 ‘이동 신청’을 해야 된다. 교인들이 그 목회자와 잘 안 맞아서 원치 않는데, 교역자가 계속하겠다고 하며 자꾸 하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 목회자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선교’도 잘해야 되고, ‘다스림’도 약하면 안 된다. 고로 배우고 하기다.

7. 지도자는 혼자서 단독으로 하지 말아라. 항상 ‘의논과 상의’다. 의논하되, ‘자기중심’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8. <필기시험>으로도 <실기 시험>으로도 ‘평소 실력’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9. <평소>에는 잘했는데, <실기 시험> 때 당황할 수도 있고, 목이 설 수도 있고, 순간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 것이다. 고로 필기나 실기나 ‘시험’을 잘 못 봤어도 ‘평소 실력’을 중심해야 된다.

10. <필박과 시험 때>는 심리적으로 의식되어 정말 못 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평소>에는 잘한다. 고로 ‘평소 신앙’을 보고 써라.

11. <시험>을 중심해서 평가하여 사명을 맡기지 말고, <평소>에 잘하면 사명을 맡겨라.

12. 어떤 사람은 <시험>은 잘 보는데, <실전에서 일할 때>는 못 한다. 고로 ‘시험’을 중심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사명을 맡겨라.

13. 시험 노이로제, 시험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시험’을 표준으로 하면 안 된다. ‘평소 신앙’을 표준 하여 사명을 주어라.

14. 어떤 사람은 ‘지도자 앞’에서만 말을 잘 못 한다. 의식하니 그러하다. 고로 ‘평소에 일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면,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맡겨라. 어차피 ‘지도자 앞’에서 사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사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르다.
2. 말씀을 전해야 더 느끼고, 더 깨닫고, 더 감동받는다.
3.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 단계'이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다.
4. <사랑의 핵>이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못 느끼고, 사랑을 창조한 보람이 없다.
5. (성령) 본인 자신들이 신이 되어 한다.
6.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신의 말씀, 신의 생각>을 받음으로 '신'이 되어 한다.
7. <밭에 감춰진 보화>를 누가 가르쳐 줘서 찾는 것이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그러하시다. 만일 삼위일체가 <밭에 감춰진 보화>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면, 누구는 가르쳐 주고 누구는 안 가르쳐 주겠느냐. 본인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책임을 지고 행하여 찾는 것이다. 하는 만큼 삼위는 역사하신다. 본인이 <삼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신'이 되어 한다. 그 터전을 만들어 놓은 자를 하나님은 뽑으시고, 그 터전 위에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삼위의 몸'으로 쓰신다.
8.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며 살면, 그것이 '인간으로서 신이 된 것'이다.
9.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을 깨부수는 것이다.
10. <생각>이 '자기의 무기'다. 고로 <생각>을 강하게 해라. <자기 생각>을 '삼위의 생각'과 일체 시켜라.
11. <생각>이 흐리면, 마치 <눈>이 흐려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12. <너>는 항상 '육'이고, <성령님, 성자, 주>가 '너의 뇌, 너의 머리, 너의 생각'이다.
13.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느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생각>과 일체 되지 않고서는 '구원'도 못 받고, '휴거'도 안 되고, '천국'에도 갈 수 없다.
14. 인간 스스로는 <인간 세계의 주권>을 못 벗어난다.
15. 바다의 물고기들이 그리 많아도 '물고기 스스로'는 <육지>로 올라와서 다닐 수 없다. 이 지구 세상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인간 스스로'는 땅을 벗어나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인간의 영들'이 스스로 <천국>에 찾아가지 못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메시아가 '인간의 육신'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 육'을 통해 '그 영'을 키우고 변화시켜야, '영'이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16.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기 스스로 행하는 이단 종교인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주관과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금’같이 쓰기도 하고, ‘은’같이 쓰기도 한다.
2.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은 ‘금’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한다.
3. 인간은 ‘평소 삶’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4. 자기 평소 삶이 자기중심적이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평소 삶이 구시대 사고로 사는 삶이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평소 삶이 이단 교리에 빠져 사는 삶이면 이치에 벗어나 그것이 옳다 생각하고, 자기 평소 삶이 절대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있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삼위의 생각대로 생각한다.
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정신>을 받아 생각해라. 그리고 그 생각대로 자꾸 행해라.
6. 하루 종일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낸다.
7. <손>도 하루 종일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낸다. 하루 종일 ‘빈손’이다. <뇌와 생각>은 ‘손’과 같다. 고로 생각하면서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8. <뇌>는 ‘생각의 기구’다. 생각해야 뇌가 움직인다. 뇌를 써야 생각하게 된다.
9. <생각>은 ‘손발’과 같아서 자꾸 써야 된다.
10. <생각>은 ‘구상하는 도구’다. ‘실천하는 도구’다.
11. <생각>은 ‘보물을 찾는 도구’다.
12. 처음에 ‘산에 있는 돌들’ 중에 ‘수석’이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생각이 가동되니, <내 혼>을 보내어 확인하라고 했다. <내 혼>이 ‘산에 수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육의 뇌, 생각>에 말해 주었다. 그러나 <내 몸>이 간혀서 못 가니,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어 거기 가서 찾아오라고 했다. 그들이 가서 내 혼이 본 것을 찾아왔다.
13. <내 생각>에 ‘성자’도 ‘성령’도 같이 행하셨다. 그다음에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생각했다. 그러다 ‘성지 땅 주위의 바위’를 발견하게 되었다. 작아 보여서 흙을 파내니 ‘큰 바위’였다. 흙을 파낼수록 ‘바위의 형상’이 나왔다. 더 깊이 파니 ‘구멍이 뚫린 신비한 큰 형상 바위’가 나왔다. 그때 ‘금단의 열매 형상 바위’도 같이 찾았다. 거기서 또 <생각의 차원>을 높여 생각하고 행하니, ‘더 큰 바위’를 얻게 되었다.
14. <성령님>은 내가 목적을 두고 ‘생각의 차원’을 높이도록 ‘감동’을 주셨고, <성자>는 그에 대해 ‘말씀’을 주셨다. 결국 첫 번째로는 ‘수석’을 찾고, 그다음에는 ‘집 근처에 있는 큰 형상 바위’를 찾게 되었다.
15. 원래는 중국에서 ‘큰 형상석’을 사 오려고 사방에서 알아봤다. 그러나 ‘큰 돌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찾던 구멍 뚫린 신기한 돌’은 없었다. 겨우 ‘구멍 뚫린 바위 한 개’를 찾았으나, 다른 돌들을 알아보는 사이에 누가 사 가 버렸다. 중국에서 큰 돌을 사 오자니 한국으로 가져오는 데도 힘이 들고, 옮기는 데도 그 경비가 엄청났다. 그때 ‘성지 땅 주변’에서 ‘작은 수석’을 먼저 찾았다. 그러다가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큰 바위’도 찾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중국에서 가져오려던 돌과는 비교가 안 되게 더 좋은 돌을 ‘성지 땅 주변’에서 찾았다. 성자와 성령이 <내 생각>에 역사하시어, 그 생각대로 행하게 하여 찾게 하셨다.
16. 생각하고 행하되, ‘차원을 높여 생각하고 행하기’다.
17. 선생도 처음에는 ‘작은 수석’을 찾을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행해서 찾았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각의 차원>을 더 높여서 행함으로 ‘신비한 형상 바위’를 찾았다.

18. 차원을 높이려면, 깊이 기도하여 4차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
19. 육체 1차원, 생각 2차원, 혼 3차원, 영 4차원이다. 이 단계에서 ‘절대신 삼위일체와 일체 되기’다.
20. 혼계에서 ‘혼’으로 보아라. 그리고 혼이 본 것을 ‘육의 생각’에 전달하여라. 그러면 육계에서 ‘육의 눈과 생각’으로 본 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이, 높이 보게 된다.
21. 영계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복잡하다. 깊이 기도하여 영계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해석’이 잘 되고 ‘분별’도 잘된다.
22. 가까이 가면 잘 보이듯이, 깊이 들어가야 잘 알게 된다.
23. 끝까지 <차원>을 높여야 ‘최고로 큰 것’을 얻게 된다.
24. 끝까지 차원을 높였더니 ‘최고로 큰 것’을 얻었다. 첫 번째로 ‘수석’을 찾았고, 두 번째로 ‘조금 큰 수석’을 찾았고, 세 번째로 ‘바위 수석 두 개’를 찾았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더 <차원>을 높여 생각하고 행하여 ‘엄청난 바위’를 찾았다.
25. 휴거될 때까지도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잔인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끝까지 하니, 결국 <휴거>를 이루었다. 이제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면 <휴거 700선>까지 가서 완전히 완성하게 된다. 끝까지다! 주와 같이 끝까지다! 차원을 높이는 것도 끝까지다!

<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신>은 귀하다. 그 몸을 가지고 수천 가지의 일을 하며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고로 <자기 몸의 가치>를 알고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존재 기간까지 자기 몸을 건강하게 사용하며 존재시킨다.
3. 하루 종일 글을 보며 일만 해도 ‘눈’이 충혈되어 순간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당황하여 아무것도 못 한다. 눈뿐 아니라 코, 입, 귀, 손, 발, 팔, 다리 등 ‘멀쩡했던 몸’에 이상이 생기면 기능을 못 하게 된다. 그때는 심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4. 눈·코·입·귀·팔·다리·손·발보다 100배 이상 귀하고 중한 지체가 있다. 곧 ‘뇌’다.
5. <뇌>는 ‘생각’을 하면서 지체 전체의 기능을 통솔하고, 지체에 힘을 주고, 지체를 움직이게 한다. 고로 <뇌>는 ‘몸 전체의 핵’이다.
6. <뇌>에서 하는 일은 ‘생각하는 일’이다. 고로 <뇌>는 생각해야 기능을 하며 움직인다.
7. 인간을 지으신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곧 인간의 육신을 통솔할 <생각>을 창조하여 <생각>을 가지고 <육>이 행하게 함으로 <혼과 영의 운명>을 좌우하게 하셨다.
8. <인간의 육신>과 <뇌>를 창조했어도 <생각>을 제대로 못 하면, ‘육의 몸’도 ‘뇌’도 다 무용지물이다.
9. <TV>를 만들었는데 <화면>이 안 나오면 <TV>도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과 뇌>가 있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 귀한 ‘육신’도 ‘뇌’도 다 무용지물이다.
10. <사람 몸의 핵>은 ‘뇌’다. <뇌의 핵>은 인간의 육의 생명이 되는 ‘생각’이다. <뇌>를 창조한 이유는 ‘생각’을 창조

하기 위함이다.

11. <생각>이 고장 나면 ‘지체’가 고장 난 것과 같고, <생각>이 정상이 아니면 ‘지체’가 제대로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12. <생각>을 잘못하면, ‘작은 일’도 ‘큰일’도 모두 손해가 가고 실패한다.

13. <생각>이 고장 나서 기능을 상실하면, <만사>가 실패다.

14. 사탄도 악한 자들도 <생각>에 ‘잘못된 관’을 넣으면서 꾀다.

15. <생각>이 잘못되면, ‘주’도 불신하고 ‘말씀’도 불신한다.

16. <생각>이 잘못되면, ‘휴거의 삶’도 멈추게 된다.

17. <생각>이 강철 같고, <생각>이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있어야 사탄과 악을 물리치고 이긴다.

18. 인생은 <생각>이 ‘핵’이다. 고로 <생각>이 무기력하고 감각을 잃으면 <구원>도 <휴거>도 실패하고, <혼>도 <영>도 영원히 실패하고, <육>까지 실패한다.

19. <뇌>는 ‘지체를 움직이게 하고 기능하게 하는 기계’이니, 뇌에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

20. <생각>을 잘못하면, 뇌가 헛기능을 하는 것이다.

21. 삼위일체가 <생각>을 창조하신 이유는 - 첫째, <생각>을 온전히 하고 삼위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육>도 땅에서 ‘지상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 둘째, 그 <육의 행실>을 ‘혼과 영’이 받아서 <혼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고 구원받고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다.

22. 자기가 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육신’이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 하는 <육의 운명>도 좌우되고, ‘영혼’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영의 운명>도 좌우된다.

23. <확실한 생각>으로 행해라.

24. <총명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행해라.

25. <생각>을 잘하고, 늘 <확인>하고 행해라.

26. <성령과 성자와 주의 생각>으로 행해야 ‘확실한 생각, 좋은 생각, 총명한 생각, 지혜로운 생각’으로 행할 수 있다.

27. <성령과 성자와 주의 생각>으로 행하려면 늘 자기 입으로 생각이 흐려지지 않게 ‘지시’하고, 늘 ‘말씀’을 잊지 말고 생각하며, 항상 ‘기도’해라. 그래야 삼위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하게 된다.

28. <생각>이 흐려지면, ‘사탄·마귀·잡생각’이 들어온다.

29. 사탄과 마귀도, 악한 자들도, 꾀는 자들도 <생각>이 흐리고 <주관>이 흐리멍당한 자를 주관하고 꾀다. <생각>이 흐리니, 사탄이 100% 틈을 타고 역사하여 해를 주고 섭리사를 벗어나게 한다.

30. 늘 <자기 생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입으로 ‘지시’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서 <삼위의 생각>을 가지고 행해라.

31. 틈을 주면 ‘방에서 기르던 귀뚜라미’도 문 사이로 빠져나가 도망간다. 이와 같이 틈을 주면 ‘생명들’이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고,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더욱 ‘자기 마음, 교회 안, 섭리사 안’으로 들어와서 방해하고 괴롭힌다. 이것을 잊으면 죽는다.

32. <생각>이 ‘신’이고, ‘자기 경호원’이다. <생각>을 잘하고, <삼위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그 생각이 ‘신’이 되어 자기를 옹호한 길로 인도하고, 그 생각이 ‘자기 경호원’이 되어 자기를 지켜 준다.

33. <신의 생각>과 일체 되도록 ‘신’을 잊지 말아라. 그러려면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하루에 100번씩, 200번씩, 300번씩 불러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때는 생각에서 ‘사탄, 잡생각, 잡념, 불의한 생각’이 떠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이기는 삶’을 살아라.

34. <최고의 삶>은 ‘자기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려, 강철 같은 생각으로 사탄과 잡념을 물리치는 삶’이다.

<2015년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300선 이상으로 휴거된 후에 계속 변질되지 않고 행하면, <그 영>에게 ‘황금성 천국의 삶’이 보장된다.

2. <300선 이상으로 휴거된 것>은 ‘결혼한 것’과 같다.

3. 결혼한 여자가 계속해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사랑하며 살면,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이 보장된다. 그러나 다른 남자와 사랑하여 ‘생각과 몸’이 타락되면, 남편이 그 여자와는 같이 살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다. 만일 남편이 용서한다면, 여자는 그 용서를 받고 더 잘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했는데도 또 그러면 정말 헤어져야 된다. 여자가 자기 스스로 ‘다른 남자’를 택해서 사랑했으니, 남자가 헤어지자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길을 가면서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4. <휴거된 자>도 그러하다. 성자와 분체가 <300선 휴거>까지는 다 이루게 해 주었으니, 이제는 자기가 ‘휴거의 삶’을 살면서 ‘성삼위를 더욱 사랑’하면서 ‘주와 일체’ 되어 행하면서, 자기가 <400선, 500선, 600선>으로 올라가야 된다.

5. 그런데 “300선 휴거됐으니 다 됐다.” 생각하고, 휴거되고도 기뻐하지 못하여 곤고함에 빠지고, <자기 생각과 주관>을 다른 데 뺏기어 세상으로 가거나 타락이 된다면, <휴거된 영>이라도 천국에서 내려와야 된다. <육>과 <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6. 휴거된 영은 <천국 황금성>이 보장됐다. 그러나 휴거된 후에 <휴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차원>을 높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관>을 다른 데 뺏겨 제 갈 길을 가고 타락된 자에게는 <천국 황금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7. 결혼하기 전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부터 정말 잘해야 하듯이, 휴거된 후부터는 정말 잘해야 된다. 아직은 ‘육신’을 쓰고 살기 때문이다. <육의 핵>인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8. 날마다 자기 입으로 지시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삼위를 더욱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지고 흐리멍덩해진다. <생각>을 다른 데 뺏기게 된다.

9. <생각>은 자기 육신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 육>에게 힘을 주고, 그리함으로 <육>이 더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영의 차원’을 높이게 해 준다. 그런데 <생각>이 약해지고 흐리멍덩해지니, ‘휴거의 삶’도 약해지고, ‘행하는 힘’도 약해지고, ‘사랑의 힘’도 약해지고, ‘만사’가 다 약해지니, 결국 영·혼·육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10. 휴거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 갈 길로 가고, 타락해 놓고 회개도 안 하고 가면, 그때는 <영>이 ‘천국’에서 쫓겨나게 된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가 천국에서 쫓겨나듯 하게 된다.

11. <자기 육과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육의 생각과 행실>이 계속해서 <영의 운명>을 좌우한다.
12. 휴거됐으니, 매일 <휴거의 삶>을 살아라.
13. 휴거됐으니 <휴거된 자기 영>을 매일 부르고 교통하며, 그 힘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날마다 <차원>을 높여라.
14. 휴거됐으니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를 매일, 수시로, 무시로 불러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다리고 계신다.
15. 휴거됐으니 매일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며, 더욱 주와 일체 되어라. 휴거되어 붙었으니,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붙어살아라.
16. 휴거됐으니 매일 말씀을 잊지 말고 뇌 속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휴거된 자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답을 정확히 알고 더욱 확실하게 살며 더 차원을 높이게 된다.
17. 휴거됐으니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말아라. 휴거됐으니 이전과는 <생각>이 달라야 된다. <주의 생각>으로 무장이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으로 무장이다. 생각 일체, 정신 일체, 혼연일체, 영 일체다.

<2015년 7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20~30세 된 사람이 열 살, 열두 살 된 어린 자와 같이 생활하며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각의 차원>도 낮고, <말하는 수준>도 낮고, <생활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이다.
2.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수준이 낮은 자'와는 같이 못 사신다.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해 주고 좋아해 줘도 <차원>이 다르니 답답해서 같이 못 산다.
3. 어린아이와 어른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린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알고 어린아이만큼이라도 행하면 같이 살 수 있다. 그것이 작더라도 '어른과 연관'되어 있고 '어른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른>이 '어린아이를 쓰고 할 일'을 하고, '어른으로서도 할 일'을 하면서 살면, 같이 살 수 있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 <삼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도 차이가 많다. <생각의 차원>이 너무도 다르니, '신 따로, 인간 따로' 각각이면, 같이 살 수가 없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신의 마음'을 알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작더라도 '삼위'와 연관되어 있고 '삼위가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행하면, 같이 살 수 있다. 그 대신 사람이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래야 그 마음이 '삼위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야 삼위가 '그 육신'을 쓰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매일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지고, 그 생각에 '사탄과 잡생각'이 치고 들어온다.
6.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매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지고, 그 생각에 '사탄과 잡생각'이 치고 들어온다.
7.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매일 부르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지고, 그 생각에 '사탄과 잡생각'이 치고 들어온다.
8. <주가 준 말씀>을 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약해지고, 그 생각에 '사탄과 잡생각'이 치고 들어온다.
9. 매일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면, 매일 <축복>을 받는다.
10. 매일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잊고 사니, 그것이 틈이 되어 사탄이 침범하고, 생각을 뺏기는 것이다.

11. 매일 '자기 할 일'을 하면, 매일 <축복>을 받는다.

12. <자기 할 일>을 안 하니, '해'를 받는 것이다.

13. <할 일>을 제때 안 하면, 그것이 '화'로 변해서 자기에게 '해'를 주게 된다.

14. <할 일>을 제때 하니, 그것이 '복'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15. <기도>를 제시간에 안 하면, 만 가지가 손해다.

16. 다른 것들은 다른 시간에 해도 되지만, <기도>는 '정한 시간'에 안 하면 못 한다. 고로 만 가지가 손해다.

17. 사람의 마음에 '걱정·근심·염려'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버리느냐. <생각>으로 버린다. <생각>에서 버려야 걱정이 떠나간다.

18. 기쁨도 어떻게 누리느냐. <생각>에서 느끼고 누린다. <생각>이 죽어 있으면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한다. '휴거의 기쁨'도 그러하다. <생각>이 살아 있어야 느끼고 누린다.

19. 고로 <생각>이 살아 있고, <생각>이 강철 같고, <생각>이 삼위와 주와 연결되어 떨어지지 않고 일체 되어 있어야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이성의 유혹, 각종 삶의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휴거의 삶'을 살면서 '휴거의 차원'을 높 이게 된다.

20. <생각>이 천국이 돼야 <육>도 천국의 삶을 살고, <육>이 천국의 삶을 살아야 <영>도 천국의 삶을 지속해 나간다.

21.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의 걱정·근심·염려'를 버리듯이, 영의 세계의 영들도 먹은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때 <생 각>으로 자동적으로 버린다.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이 '현실'이 되어 이루어진다.

22. 이 세상에서도 <육이 생각한 것>을 '육'으로 행하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간다. <그 육의 행실과 삶>이 '자기 영'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자기 영을 변화시키고 자기 영의 차원을 높여 준다.

23. <생각>은 '물' 흘러가듯 흘러간다.

24.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몸>과 같이 흘러간다. 고로 <그릇된 생각>은 흘려보내고, <온전한 생각>을 잡아서 써라. 그래야 <네 육>도 '생명길'로 가고, 그로 인해 <네 영>도 '생명의 삶'을 연속해서 살게 된다.

<2015년 8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은 지루하다. 권태가 찾아온다. 발전이 없다. 무기력하다. 곤고하다.

2. 자기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며, 더 높고 좋은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것도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삶으로 사랑하면, '무기력한 사랑, 무기력한 삶'이 된다.

4. 육의 세계도 그러하지만, <영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로서 무한하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그 무한함은 어디서 일어나겠느냐. '생각'에서 일어난다.

5. <육의 세계>에서나 <영의 세계>에서나 ‘생각’에 따라서 무한하게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6. <생각>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라.
7. <생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삼위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말씀’을 듣고 ‘삼위’를 사랑하면서 행해야 된다.
8. <생각>을 신비하게 만들려면,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같이 ‘신령한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신령하게 되려면, ‘신령하신 절대신과의 교통, 사랑’이다.
9. <생각>을 웅장하게 만들려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생각’을 가지고 ‘그 구상’대로 행해라.
10. <육의 사랑>은 유한하다. <사랑의 무한함의 핵>은 ‘영’에게 있다. 하나님은 <육의 세상>에서도 ‘인간의 사랑의 무한함의 핵’을 육체에 두지 않고 <영>에 두셨다.
11.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다 이상적인 것>은 항상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두셨다. 곧 ‘생각, 혼, 영’에 중심을 두셨다. 육적인 세계는 매일 변하고 낡아 가니 ‘육적인 것, 육’에는 중심을 두지 않으셨다.
12. <영원한 것>일수록 ‘영 쪽’에 핵심, 중심을 두셨다.
13. <너의 생각>을 ‘영의 세계’에 두고, <너의 생각>을 ‘하나님, 성령님, 성자’에 두고 몰두하고 집중해라. 그러면 바로 통한다.
14. 처음에는 못 하지만, 나중에는 기어이 하고야 만다.
15. 하나님은 ‘정녕코’ 행하고야 마신다. 누가 막아도, 누가 반대해도, 누가 몰라줘도, 누가 배신해도 ‘정녕코’ 행하신다. 그리하여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정녕코’ 이루고야 마셨다.
16.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고 온 자는 인생 70년 동안 ‘최고로 큰일 한 가지’에 몰두하여, 어떤 희생과 어려움과 환난도 마다하지 않고 ‘정녕코, 기필코’ 행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말았다. 누가 막아도 ‘하나님의 일’이니, 구원과 휴거의 사명자도 꺾이지 않고 했고, 그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절대 함께하시어 이루고 말았다.
17. 너도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라. <그 생각>을 받아라. 그러면 <너의 생각>이 ‘신’이 되어, 너도 정녕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목적’도 ‘너의 목적’도 달성하고야 만다.

<2015년 8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해야 된다.
2.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잠가야 하듯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 사탄을 이기는 기도를 하니, 이 잠언을 주셨다.
3. 일해야 이긴다. 행해야 이긴다.
4. <자기>가 행해야 마치 조각을 깎아서 만들듯이 ‘자기라는 몸, 마음, 생각, 혼, 영’이 닦아지고 만들어진다.
5. 아프면 <자기>가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낫듯이, <자기>가 행해야 <자기>가 변화되고 고쳐진다.
6. 스스로 매일 행해라.

7. 스스로 매일 행하되,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해라.
8. 스스로 매일 행하되, '성삼위의 정신과 생각'으로 행해라.
9. 스스로 매일 행하되, '말씀의 뜻'을 '자기 뇌'에 확 꽂아 놓고 행해라.
10. 아기가 걸을 때가 되면, 걷는 것을 배우고 자기가 걸듯이, 만사의 모든 일도 <자기>가 해야 일이 되고 얻어진다.
11. <신의 말씀, 신의 정신>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신'이 된다.
12.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누가 시켜서 하지 않으신다. 스스로 행하신다. 어떻게 스스로 행하실까? 스스로 알기 때문이다.
13. 자기 스스로 행하는 자는 알기 때문이다.
14.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의 뜻'을 알기 때문이다.
15. 자기가 하되, 성삼위와 주 안에서 자기 할 일을 하라는 것이다.
16. 자기를 중심하지 말고 '삼위와 주'를 중심으로 하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하기도.
17. 자기 취향,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만 하면, '빛나간 화살'처럼 되어 '사망으로 가는 자'가 된다.
18.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한다.
19. 사람들끼리도 믿어 주고, 친해지고, 사랑해야 돕는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그러하시다. '신'이시니 알아서 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불러 보아라. 찾아보아라. 믿어 보아라. 섬겨 보아라. 사랑해 보아라. 극적으로 해 보아라.
20.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체'시라 인간에게 나타나고 이야기하고 도우셔도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나 <절대자>는 눈에 보이면서 행하면 절대 안 된다. 심판도 해야 되고, 축복도 줘야 되고, 각종 일들을 하셔야 되니 인간 모르게 해야 된다.
21.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함께하면서 사는 것을 다 모른다. 그 도움을 받고 함께 사는 자만 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도 느끼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사는 자'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다. - 이는 마치 자기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는 것을 느끼고 아는 격이다.
22. 스스로 '절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된다.
23.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원자를 통해서 주시는 시대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받아라. 그 말씀을 뇌에서 빼지 말아라. 그러면 '신의 생각'을 받았으니, 너도 '신'이 되어 사탄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악평자를 물리치고, 세상 험난한 파도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뜻을 이룬다.

<2015년 8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눈>으로 안 보이면 <생각>해서 보아라.
2. 누가 '신의 사랑의 양'을 채워 줄 자 있느냐.

3. <영>은 육신의 모습·모양·형체를 기본으로 하여 생겼으니, 먼저 1단계로 ‘육신’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신령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형상’을 생각하여 자기 차원대로 보아라.
4. <꿈>은 ‘하나의 영의 세계’다. 고로 꿈에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보인다.
5. <꿈>에 ‘자기 혼, 타인의 혼, 인간의 영’을 통해 보여 주며, ‘성령님을 상징’으로 보여 준다. 그러다 성령님을 보게 되기도 한다.
6. 천국에서도 저마다 능력과 실력껏 보고 활동하며 살아간다.
7.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실력껏 보고, 찾고, 얻으며 살아간다. 천국에서도 질서 속에서 그리한다.
8. 세상에서도 <깨닫는 자>만 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평생 말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누리며 살아간다.
9.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라. 이것이 영계에 들어가는 코스다.
10.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라. 그러면 순간 지능지수가 높아져서 말쑥이 깊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판단의 실수 없이 온전한 판단을 하고, 영계에 들어가 더 깊은 것을 보고 알게 된다.
11. 생각을 완전히 집중하여 <영의 것>만 생각나고 <육의 것>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때 ‘영계의 문턱’을 넘어간 것이다.
12. <자기 자체 영적 힘>으로는 ‘혼의 세계에서 혼이 활동하는 정도’이고, 영이 ‘자기 차원 급으로만 활동하는 정도’다. 고로 성자와 성령께 간구하여 ‘절대 능력’으로 행하고, 주와 일체 되어 ‘주와 함께’ 행해라. 그래야 <육>도 그 힘을 받아 더욱 힘 있게 행하고, <혼과 영>도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서 더 이상적인 곳으로 가게 된다.
13. 세상에서도 ‘자기 능력 안’에서만 행한다. <자기 차원>을 벗어나서 행하려면 ‘그 수준 위의 차원에 있는 자’가 이끌어 줘야 된다.
14.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차원이 높아서 ‘육’으로 직접 통하지 못한다. 고로 ‘육보다 한 차원 높은 <생각과 정신>’으로 통해라.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면 삼위와 통하게 되고, 육으로 안 되는 것이 된다. 그다음에 ‘육에 속한 생각보다 한 차원 높은 <혼>’으로 통해라. 그러면 <혼>이 ‘자기 육의 생각’에 전달하여 통하게 해 준다. 그다음에는 ‘혼보다 한 차원 높은 <영>’으로 통해라. <영>이 ‘자기 혼’에게 전달하면, <혼>은 ‘자기 생각’에게 전달하여 통하게 하고 행하게 한다. <영의 생각, 혼의 생각>이 ‘자기 뇌, 자기 생각’에 접목되면, 성삼위가 느껴지고, 성삼위의 생각을 깨닫게 된다. 마치 뇌신경을 통해 ‘쓴맛, 단맛, 신맛, 짠맛, 짙은 것’을 느끼듯, <뇌의 생각>을 통해서 ‘혼과 영이 전달한 것’이 느껴진다.
15.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쓰고 달고 짜고 신 것을 느껴서 알듯이, <영의 세계의 것들>도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느껴서 알게 된다. 마치 여름철에 쓰레기장을 지나가면 썩는 냄새가 그대로 느껴지듯이, <자기 생각과 느낌>으로 무서운 느낌, 두려운 파장, 이성의 파장, 마귀의 꾀, 썩는 냄새 등도 느껴진다. 고로 감지해라.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오면, 오직 자기 생각을 삼위일체께만 향하게 해라. 그러면 그 안 좋은 파장이 차단된다. 그러면 평생 이상 없다.
16. <영감, 직감, 혼의 감각, 생각,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민감하고 예리하게 해야 된다. 배우고 잘 사용하면서 행하면, 삶 속에서 계속 써먹으면서 ‘안 좋은 것들’은 피하고 ‘좋은 것들’은 행하게 된다.
17. <생각>은 ‘신’이다. <생각>을 흐리멍덩하게 하고 <정신>에 이상이 있으면, <생각과 정신>이 ‘신 역할’을 하지 못한다. 네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정신’을 받아라. 그리고 네 생각을 뚜렷하고 강하게 해라. 그래야 <생각>이 ‘신’이 되어 너를 다스린다. 저마다 <생각>에 대해서 배워라. 그리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정신’을 받아서, <자기 생각>을 ‘신’으로 여기고 대해라. 또한 <혼>에 대해서 배우고 연구하며, <혼>을 ‘신’으로 여기고 대해라. 또한 <영>

은 ‘자기 신’이다. 특히 <휴거된 영>은 ‘성삼위와 일체 된 신 같은 존재’다. 왜 <생각, 혼, 영>을 안 쓰느냐. 매일 부르면서 심부름 시켜라. 시키면 ‘사람’을 쓰고 행한다. 놀리지 말아라.

<2015년 8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신’이 되게 한다.
2. <글>은 ‘전달하는 데 최하위 방법’이다.
3. <글>로 하면 실감이 안 난다. <말>같이 강약 조절을 못 하기 때문이다.
4. <말>은 ‘전달하는 데 두 번째로 강력한 방법’이다.
5. <행동>은 ‘전달하는 데 가장 강력하고 위력 있는 방법’이다.
6. 가령 실제로 직접 폭탄이 터진다면, 그것을 보고 즉시 실감이 나니 ‘글’로도 ‘말’로도 표현하여 전달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사람이 직접 행동하면, ‘글’도 ‘말’도 필요 없는 것이다.
7. <말>로 직접 하면 <글>이 필요 없듯이, <행동>으로 하면 <말>이 필요 없다. 고로 실천해라. 행해라!
8. 읽기만 하지 말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해라!
9. 사람은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로 <육의 몸>으로 행할 때 실감 나고, 잘 느껴지고, 불이 붙어 가슴이 찡하고, 뇌의 생각이 찌릿하고, 몸이 불덩어리가 된다.
10. 이 세상에서는 <육의 몸>이 최고다. 그러나 그 몸이 움직이도록 시동을 걸어 주는 것이 <생각>이다. 그 생각으로 행하여 육도 혼도 영도 변화시키고, 혼과 영이 천국에 가게 한다. 고로 <생각>이 그리 중요하다.
11. 사람들은 <생각>이 약하다. 그리고 <실천력>이 약하다. 작은 것, 하찮은 것인데도 실천하려면 그리도 미적거린다.
12. 독사나 야수가 물려고 쫓아오는 꼴을 봐야 그제야 번개같이 움직인다. 그때만 번개같이 움직이지 말고, 항상 번개같이 행해라.
13. <행동>으로 교육해야 실감이 나서 감동을 받고 잊지 않고 행한다.
14. <말>은 능력 있게, 위력 있게 해야 된다.
15.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능력과 위력’에 따라서 듣는 자가 감동받고 행하게 된다.
16. <말 잘하는 연습>을 많이 해라. 그래야 그 말을 들으면, 감동받고 행하게 된다.
17. <말>은 ‘강약, 심정, 성령의 감동’으로 하기다. 그리고 ‘내용 설명’을 조리 있게 잘하기다. 또한 말을 잘 알아듣도록 ‘발음’을 온전하게 하기다.
18.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 설명을 잘해 주면서 위대하게 전해야 된다.
19.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산같이 토해 놓는다. 듣는 자가 ‘생각의 귀’를 막으려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배설물처럼 내보낸다. 곧 ‘악한 자들의 말’이며 ‘악평자들의 말’이다.

20. 자기만 말하지 말고, 상대도 말하게 해라.

21.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전하는 자가 능력과 심정으로 생명력 있게 전하지 못하면, 듣는 자들이 그 말을 흡수하지 못한다. 감동받고, 깨닫고, 느끼고, 실감하도록 전해야 된다.

22. <시대 생명의 말씀>을 강의하는 자들도 생명력 있게 심정으로 강의해야 그로 인해 '생명이 탄생'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23. 사람은 알아야 '필요성'을 느끼고 행한다.

24. 사람의 머리를 곧게 세우면 5kg의 무게를 받고, 머리를 숙이면 25kg의 무게를 받아 힘줄이 당기고 근육이 당겨 어깨가 굳어지고 목 디스크가 생긴다. 이것을 알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공부하지 않는다.

25. 사람이 엎드려서 생활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 평생 고생한다.

26. 자기 스스로 안 좋은 습관이 들어 자기를 고생시키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한다.

27. 자기 습관이 자기를 묶어 매고, 갇은 고통을 풀고루 당하게 한다.

28. <뇌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 주는 대로, '온몸'이 그에 대한 느낌을 받고 행한다.

29. <생각의 방향>에 따라 '마음'도 '생각'도 '몸'도 그에 대한 느낌을 받는다.

30. <말의 능력이 있는 자>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도록 말로 선포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가 다시 말하니, 비가 왔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말하니, 하나님이 그리 행하신 것이다.

31. 모두 '말 잘하기'를 계획하고 도전해라. 왜?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선포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위대하게 전하기 위함이다.

32. 말 잘하면, 안 될 것인데도 하나님이 듣고 들어주신다.

33. 말 잘하면 1년 동안 고생할 것도 안 하게 되고, 황금 덩이 같은 것을 얻게 된다.

34. <말의 능력자>가 말씀을 전하면, 마치 용광로 속에 철을 녹이듯 청중의 마음을 녹여 놓는다.

35. <감동>이 얼마나 위력 있고 무서운 것인지 알아라. 감동되면 안 한다고 했던 자도 스스로 하게 된다.

36. 감동되게 말을 하여라.

37. <천 마디 말>보다 <한 마디 감동의 말>이다. 그 한 마디가 운명을 좌우한다.

38. <말>은 '알아듣게 하는 것'이 생명이다. 천사라도 못 알아듣게 말하면, 그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

39. <글>로 하면 20~30분을 해야 될 것도 <말>로 하면 1분이면 한다. 그러니 나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나의 심정을 받고 '나의 몸, 나의 입술'이 되어 속 시원히 외쳐 다오.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육>이 핵이다. 육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것이 <생각>이다. 한 번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여 감옥에서 평생 지옥 고통을 받고 살기도 하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기도 한다.
2. <영>이 지옥에 가서 지옥 고통을 받는 원인도 <육>이 '생각'을 잘못 하고 행해서 그러하다.
3. <생각>에 따라서 '하루의 운명, 일생의 운명, 영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된다. 고로 <생각의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라.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지옥에 안 가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4. 이 세상의 육신의 핵, 원자폭탄은 <생각>이다.
5. 한 민족의 주권자도 '생각'을 잘못하면, 민족이 망한다.
6. <생각>으로 인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좌우된다.
7. 무지한 자는 필요 없는 것을 생각하고 쓸데없이 행하며 수고한다.
8. <육의 생각>에 따라서 '육·혼·영'이 고통의 삶, 혹은 기쁨의 삶으로 좌우된다.
9. 생각을 잘하고 행하기다.
10.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같이 높고 큰 차이가 있다.
11. 삼위일체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을 온전하고 합당하게 하면 생각이 '신'같이 되고, 제대로 못 하면 생각이 '사람'같이 되고, 때로는 생각이 '짐승'같이 되기도 한다.
12. <생각>은 '신'이다. <생각>은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에 속해 있으니 '신'과 일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절대신'과 일체 되면 '신'이 된다.
13. <육신>도 '하나의 보이는 신'이다. <생각과 정신>도 '하나의 신'이다. <혼>도 '영에 속해 있으니 하나의 신'이다. <영>도 '신'이다. - 그러나 절대신이신 <삼위일체>와 일체 돼야 '신 역할'을 하며 기능을 발휘한다.
14. 저마다 <생각>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으니, 배우고 쓰면서 확인해라. 그러면 의심도 없고 확신하고 쓰게 된다.
15. 모르니 못 산다. <자기 영혼>이 있는데도 '육신의 생각'이 몰라서 '영혼'을 위해 살지 못함으로 <영>을 지옥으로 보낸다. 또한 <혼>은 '육신에 속한 영'인데,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다가 '혼'도 '영'을 따라서 어이없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
16. 모르면 '100억짜리 보물'도 '10억'에 팔고, 좋아서 잔치한다. 그 보물이 100억짜리인지 알게 되면, 잔칫상을 뒤엎고 탄식한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히 망한다.
17. <생각이 온전한 자>는 강철 기둥 같아서 요동이 없다.
18. 온전히 배워라.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자를 통해서 온전히 배워라.
19.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다. 고로 <뜻>을 두고 절대 요동하지 않으신다. 다 알기 때문이다. 절대 신과 '생각'을 일체 시켜라.

20. 섭리인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위대한 시대 말씀, 온전한 시대 말씀’을 받았다. 믿고 행하면 ‘삼위’와 일체 되어 ‘신’같이 행한다.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각>이 ‘영·혼·육의 운명을 좌우’한다. 고로 <생각>을 잘하고 행하기다.

2. <생각>을 잘못하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육도 실패의 길로 가고, 혼과 영도 망한다.

3.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영혼의 미래’가 없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절대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모르기 때문이다.

4.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생각>을 잘못하여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다. <생각과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 믿 으면서도 기다리면서도 헛수고를 한다.

5.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하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에 죽은 시체들이 살아나 공중에서 주를 맞고 휴거되고, 살아 있는 자들의 육신도 주를 맞고 공중으로 휴거된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오 션고, 휴거는 그렇게는 안 이루어졌다. 그 시대는 지나가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 ‘재림과 휴거 역사’를 이루고 있다. <생각>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믿으니, 그들에게는 성경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6. 만일 그들의 생각이 맞았다면, 그들에게 <새 역사, 재림과 휴거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7.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정녕코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한 시대가 오고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8. <하나님이 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 주신 시대 말씀>을 절대시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가 그에게 임하여 담대히 행하게 하시며 ‘뜻’을 이루신다.

9.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췄다. 기적이다!”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 될 줄로 믿고 살고 있다. 태양 이 가지도 않는데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 시대는 태양이 가다가 멈춘 줄 믿고 살았던 <천동설 시대>였다. 그 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시간적 표적이 일어난 것을 태양이 멈춘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성경을 보되, ‘시대성’을 봐 야 한다.

10.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 기적이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며 외친다. 사람이 약 10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인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자고 한다고 해서 살아지겠느냐. 그 시대는 <그 시대 나이 계산 법> 으로 계산하니, 930세가 나온 것이다. <이 시대 나이 계산 법>으로 다시 계산하면, 약 70세 정도다. 기성은 아는 것이 기어 다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 그 차원으로만 생각한다.

11. 월명동 마을에서 난 목사들은 날고 기면서 늘 내게 충고하며, 잘못된 신앙이라고 지적하며 심판했다. 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절대 확실히 알았기에 ‘너희 모두 하는 일을 합쳐서 내가 하는 일의 빙산의 일각이다. 두고 보라. 너희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 하고,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대 로 행해 왔다. 결국 그 말대로 되고 말았고, 현실이 증거가 되어 증거하고 있다.

12. 사람은 모르는 만큼 그 차원에서 살다가 끝난다.

13.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데, ‘사명을 주신 만큼’ 행하신다.

14. 하나님과 성자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1000년 동안 갈 시대 말씀의 마패’였다. 내가 그 마패를 쥐었다는 것을 알 았기에 절대 흔들림이 없었다.

15. 구시대에는 해가 졌으니, 이제 새 시대 사람들이 허리를 펴고 시대의 해를 잡고 담대히 행해야 된다.
16. <생각>이 ‘신’이 되어 다스려라. 온전히 알면 ‘신’이다. <신>은 온전히 아시니, 그 생각을 받고 온전히 알면 ‘신’이다.
17. 삼위의 방법대로, 삼위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신’이다. ‘힘과 능력’이다. - 그 생각으로 천적 사탄을 물리치고, 인사탄을 물리치기다.
18. 거짓되고 악한 자들은 때가 되면 사망이 끌어간다. 오전에는 보이다가 오후에는 안 보일 때가 온다.
19.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알고 깨달은 대로 자유의지를 주어 결정하고 판단하며 행하게 하신다. 고로 <생각의 축복>을 받아라. 하나님은 ‘의의 생각, 옳은 생각,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나게 하며 축복을 주신다.
20.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은 즉시 ‘옳은 생각, 의의 생각’으로 처단해야 된다.
21. <잘못된 생각>이 ‘자기에게 사탄, 마귀’다.
22. <생각>에 따라서 ‘천재’도 되고, <생각>에 따라서 ‘영의 세계’도 본다.
23.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늘 감찰하신다.
24. 사람이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실수하는 원인은 <생각>을 ‘집중’하지 않아서다.
25. <생각>을 ‘집중’하면 아이큐가 200까지 올라가고, 혹은 영의 생각으로 뒤바뀌면서 신같이 아는 아이큐 1000만 단계가 된다.
26. <육의 생각>은 변화무쌍하니 약하다. <영의 생각>으로 해라. 그러면 충분히 ‘육신’도 다스리고 ‘답’도 주면서 살아간다.
27. 자기 아이큐가 낮아서 사고를 내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지 말고 ‘집중’해라. 그러면 아이큐가 130, 140, 150, 160, 170... 쑥쑥 올라간다. 그러면 사고도 안 내고, 실수도 안 하고, 문제도 안 일으킨다.
28. 누구든지 ‘정신과 생각을 집중’할 때, 아이큐가 올라간다.
29. <생각>을 집중하면 ‘신’이 된다. ‘영의 생각’으로 뒤바뀐다.
30. 항상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생각>으로 ‘집중’해라.

<2015년 8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났을 때가 ‘그 일을 할 기회’다.
2.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생각났을 때, 그때가 기회’다.
3.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확인해 보아라. 힘들었고 고생도 했지만, <때>가 ‘기회’였기에 하지 않았느냐.
4. <환경>은 ‘지옥’이었지만 <마음>은 ‘천국’으로 만들면서, 힘들고 고생되고 고통스러웠어도 부지런히 할 일을 했다.

나갈 곳이 없으니 한 평짜리 공간을 가꾸어 공원으로 만들어 바람을 쐬며 사용하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제철 음식들을 먹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내 몸이 직접 못 가니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편지로, 글로, 녹화한 말씀으로 계속 생명들을 잡아 주었다. 그리고 수많은 말씀들을 비디오프로, 글로 기록하여 남겼다. 또한 그때 <시대 하와 표상>을 7년 동안 키워 오다가 극적으로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생겼고, 재림과 휴거의 말씀을 전할 기본을 다지며 정신 부활을 시켜 나갔다. 때는 2004년부터 2005년 초였다. 그때가 고생되고 고통스러웠어도 ‘그 일을 할 기회’였다.

5. 그 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거기서 조건을 쌓고 할 일을 하다가 ‘시대의 죄로 갇힌 바’ 되었다. <환경>은 ‘더할 수 없는 지옥’이었지만 <마음>은 ‘천국’으로 만들면서 10개월 동안 <재림과 휴거의 역사를 위한 조건>을 세웠고, 그 후 2009년부터는 <재림과 휴거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외치며 성경의 인봉들을 풀어 밝혔다. 그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때가 그 일을 할 기회’였다. <때>가 ‘기회’였으니 목숨 걸고 행했다. 그 리함으로 행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었다.

6. 가라지가 옆에서 솟아나 괴롭혀도 그때가 ‘곡식이 클 기회’였다.

7. 환난 때, 핍박 때에도 섭리사는 한 시간도 멈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뛰어 왔다.

8. 1000년을 두고 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역사다. 지금도 쉬지 않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으니, 더욱 힘 있게 진행된다.

9. 환난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생명력 있게 펼쳐졌다. 그 환난을 이기고 지금까지 뛰어 왔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10. 어떤 사람은 환난이 끝나고 역사를 펴는 줄 알고 가만히 피하고만 있다가 신앙이 파선되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환난 때라고 해서 시간이 안 가겠느냐.

11. 성자가 떠나신 후, 지금 각 개인에게 ‘개인 환난’이 닥치고 있다. 자기가 생각을 잘못함으로 인해 오는 환난, 휴거의 가치를 모르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휴거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환난, 온전하지 못한 자들로 인해 오는 환난, 사탄과 악평자들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환난 등 ‘개인 환난’이다.

12. 기도해라. 말씀의 뜻을 뇌에 꽂아라. 주의 뜻을 달아라! 그러면 어떤 환난의 파도에도 밀려가지 않고, 주와 같이 끝까지 목적지까지 힘 있게 향해하게 된다.

13. 개인 스스로의 힘은 약하다. 휴거된 영을 불러라. 삼위일체를 불러라. 주를 불러라. 그래야 그로 인해 ‘힘’이 와서 전진하게 된다.

14. 환난 때에도 ‘생명’은 존재한다. 환난 때에도 ‘섭리역사’는 존재한다. 환난 때에도 ‘주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변함 없어라. 그런 너를 삼위일체도 주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15. 미련한 자는 지금,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모른다. 선생이 나오면 역사를 펴는 줄 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 지금, 역사를 펴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쉬지 않고 진행된다.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심부름꾼, 대신자’를 보내어 역사를 펴 나간다.

<2015년 8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생각>이 ‘신’이다.

2. 개미는 더듬이가 ‘뇌’ 역할을 한다.

3. 인간은 <생각>이 ‘더듬이 역할’을 한다. <눈과 몸>은 ‘확인’이다.
4. <뇌>는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생각하면서 분별하고 연구하며, 더 좋게 얻으려고 생각한다.
5. <육적으로 생각의 실존체>는 ‘육신’이다. 쉽게 말해서 생각한 대로 ‘육신’이 행한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육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6. <영적으로 생각의 실존체>는 ‘혼체 신’이다. 그 위에 ‘영체 신’이다. 쉽게 말해서 생각한 대로 ‘혼’도 ‘영’도 행한다. <혼과 영>은 하나님께서 ‘영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7.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완전한 절대신’이시고, 그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대상의 신’이다.
8. <생각>에 따라서 육·혼·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고로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된다.
9.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적 생각’이 되거나, ‘인간 차원의 생각’이 된다.
10. 더 좋은 생각, 더 이상적인 생각을 하려면, ‘생각의 차원’을 더 높여야 된다.
11. <인간의 생각>에서 차원을 높여도 ‘인간 생각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 <삼위일체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와 주의 정신과 생각>을 받아라. 그러면 ‘신적 생각’을 하여 <생각>이 ‘신’이 된다.
12. 창조주이며 절대신이신 <삼위일체의 말씀>대로 행하면, 육도 영도 완전하게 변화되어 ‘신의 대상, 사랑체’가 된다.
13. 완전하시며 절대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창조하시면, 삼위일체 다음이 되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신다. 삼위의 실력대로 창조하기 때문이다.
14. 창조주가 ‘인간에게 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이 신과 일체 되어 노력하고 만들기에 따라서 인간은 ‘끝없는 변화의 존재’가 된다.
15. 세상의 환경 개발과 각종 것들의 발달과 변화는 끝이 없듯이, 인생들도 ‘자기 개발, 자기 변화’는 끝이 없다.
16. 더 좋게 개발해야 더 좋게 되듯이, <생각>을 더 좋게 하고 행하면 <자기 인생>도 더 좋게 변화된다.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생각>을 창조하셨다. <생각>을 창조하지 않으면, 인간과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생각>을 창조하지 못한다. <뇌>는 ‘땅의 육신들’과도 통하고, ‘하늘의 영들’과도 통하기 때문이다. 고로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각>을 창조하신다.
3. 하나님께서 <뇌의 기본>은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뇌>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여 창조주와 가까이하고 기도하며 통하려 해야만, <뇌>가 영적으로 개발되어 <생각>으로 삼위일체와 통하고, <혼과 영>도 의롭게 만들어져 삼위일체와 교통하게 창조하셨다.
4. 사람은 누구든지 <뇌의 생각>을 가지고 잘 통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신적 뇌의 생각’을 가지고 타락한 루시퍼같이 쓰니, 일반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창조주를 가까이하고 기도하면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 <뇌>를 가장 이상적으로, 영적으로 차원 높여 쓰게 된다.

5. 하나님의 구상이 아니면 <인간의 육체>를 만들 수 없고, <생각>을 창조할 수가 없다.
6.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다.
7. <생각>을 보통으로 쓰면, 평생 큰 효력이 없다. 최첨단으로 생각하여 <생각>을 이상적으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 마치 월명동을 개발하고 쓰듯이, <생각>도 무한하게 개발하고 써야 된다.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신적 생각'으로 개발하여 가장 가치 있게 써라.
8.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배워라. 그리고 <생각>을 개발해라. 그리함으로 <생각>을 차원 높여서 써라. 그래야 '신적 차원의 생각'이 되고 '생각의 효력'이 크다.
9. <생각>을 '육신이 살아가는 데'만 쓰니, 그 생각들은 아주 보편적이다.
10. <자기 생각>을 '생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일체 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생각해라. 그리하면 '차원이 높은 생각, 신적 생각'이 되어 보통 사람 이상으로 <생각>을 가장 가치 있게 쓰게 된다.
11. <자기 생각>을 '신적 생각'으로 만들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사용하면, <육이 행하는 일>이 아주 차원이 높아진다.
12.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뇌의 기능'도 좋아진다.
13.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산다.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들>만 이를 깨닫고, 매일 인간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보고 느끼고 감사하며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을 귀하게 쓰면서 산다.
14.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15. 창조주께서 '만물'과 '인간'을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모르니, 가끔씩만 깨닫고 그때만 감탄한다. 매일 깊이 깨달도록 간구하여라. 그래야 말씀을 해 줄 때,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감동받게 된다.
16. 자기가 <생각의 차원>을 높여 봐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보고 느낀다.
17. 지구와 만물이 운행되고 작동되면서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인간을 존재시키고, 인간도 행하면서 만물과 함께 존재하니 <하나님의 창조물>은 신비하다.
18.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과 만물'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차원 높게 창조해 뉘어도 <인간의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조금만 느낀다.
19. <이 시대 말씀>도 <휴거>도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만 귀히 깨닫고 행한다.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 <300선 일반 휴거>로 끝난다.
20. 300선과 500, 600, 700선의 차이가 어떠한지 깨달아라. 기도를 깊이 하고 정말 깨달으려 해야 깨닫는다.
21. <월명동>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뉘어도 '자기 생각, 자기가 아는 수준, 자기 차원'대로만 느끼고 안다. 세상의 조경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조경>에 있어서는 '생각의 수준과 차원'이 높으니 차원 높이 느끼고 깨닫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니 폐단이다.
22. 육계도 영계도 '자기 차원'대로만 느끼고 안다. 자기 생각의 수준과 차원 이상은 못 느끼고 모른다. 고로 배워라.

아는 대로 운명이 좌우된다.

<2015년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육신'을 움직여 <육>이 '육의 차원'에서 행하게 한다. <생각>은 '혼체'를 움직여 <혼>이 '혼의 차원'에서 행하게 한다. 그리고 <생각>은 '혼이 보고 행한 것'을 <육>에게 전달하여, <육>이 차원을 높여 '영적 차원'에서 행하게 한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 '영체'가 '영의 차원'에서 행하며, 그것을 <혼>을 통해 <육의 생각>에 전달하여 <육>이 '영적 차원'에서 행하게 한다.
2. 이와 같이 <생각>은 육과 혼과 영을 잇는 '중보체'가 되기도 한다.
3. <생각>은 '육계에서 영계로 통하는 첫 출발선'이다. '핵'이다. '주인'이다.
4. <죄를 짓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되고, <의를 행하는 것>도 '생각'에서 시작된다.
5. 생각을 잘못하면 실패하고, 생각을 잘하면 성공한다.
6. <생각>도 한계가 있고, <육>도 한계가 있고, <혼>도 한계가 있다.
7. <영>은 최고 높은 차원의 존재로서 영계에서 한계 없이 무한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다. 그러나 <영>을 보기 힘들다. 고로 '육'과 '혼'을 보고 <영>을 생각하며 알아라.
8. 사람도 <전화>로 통하려면 '상대의 전화기'가 있어야 통하고, <인편>으로 통하려면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 통하고, <글>로 통하려면 상대가 글을 알고 읽어야 통한다.
9. 사람도 '상대성'으로 통하듯, 삼위일체도 인간과 통할 때 '상대의 차원'대로 통한다.
10. <인간의 육>은 '육'끼리 통하고, 혹은 '만물'과 통한다. <생각>은 '생각'으로만 서로 통한다. <혼>은 '혼'끼리 서로 통한다. <영>은 '영'끼리 서로 통한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의 육'과 통하려면, '인간의 육신' 쓰고 통하고, '실존체 만물'을 통해서 통한다. 이는 절대 공식이고 이치다.
11. <육, 혼, 영>은 '상대성'으로 서로 통한다. 물은 물끼리 통하고, 불은 불끼리 통하듯, <육>은 '육'끼리 통하고, <혼>은 '혼'끼리 통하고, <영>은 '영'끼리 통한다.
12. <육>은 '상대인 육'으로만 만지고 닿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육의 몸>이 멀리 있을 때는 못 만지니, <자기 마음과 생각>이 <상대의 마음과 생각>과 통하게 된다.
13.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통하고, '삼위의 생각'과도 통한다.
14. 전화기로는 '통화'로만 통하며 만나지, '상대의 육신'과 자기 몸이 닿고 악수하며 만나지는 못한다.
15. <몸>이 있어야 '몸'과 통한다. <몸>이 가까이 없을 때는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통한다.
16. 이와 같이 <혼>도 '혼'끼리만 통한다. <영>은 '영'끼리만 통한다. <육>은 혼도, 영도, 천사도 못 보고 못 만진다. 고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통하려 해야 통해진다.
17. 천사나, 주의 혼이나 영, 성자와 성령님이 옆에 계셔도 <육>은 못 보고 못 느낀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통해 느끼기도 하고, <자기 혼>을 통해 보기도 한다.

18. <자기 육>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통하겠느냐. 1단계 생각하면서 ‘생각 차원’으로 통하고, 2단계 깊이 기도하여 자기 혼을 가지고 ‘혼 차원’으로 통하고, 3단계 더 깊이 들어가 자기 영을 통해 ‘영 차원’으로 통한다.

19. <육, 혼, 영>은 서로 ‘상대성’으로 통한다. 이를 알아야 ‘삼위일체’와 통하고, ‘주의 혼과 영’과 통하고, ‘상대의 혼과 영’과 통하고, ‘자기 혼과 영’과 통한다.

20.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육신’이 없으시다. 고로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며 통하신다.

21.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통할 때 자기가 <생각 차원>에 있으면 ‘생각’으로 통하고, 자기가 <혼적 차원>에 있으면 ‘혼’으로 통하고, 자기가 <영적 차원>에 있으면 ‘영’으로 통한다. 이는 ‘인간이 삼위일체와 통하는 천륜의 법칙’이다.

22. <혼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자기 생각과 마음’을 쓰고 나타나 그 생각과 마음에 ‘삼위의 생각’을 주시며 말씀하시고, <상대가 있을 때>에는 ‘상대’를 통해 역사하기도 하신다.

23.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는 <생각>을 통해 통하시는데, 인간이 ‘삼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통한다.

24. 사람이 ‘서로 같은 방향’을 쳐다보면 같은 것이 보이듯이, 생각도 ‘서로 같은 생각’을 해야 통한다.

25.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는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찾으시고, 그 사람의 육신을 쓰고 행하고 역사하신다.

26. <생각>이 다르면, 같이 있어도 통해지지 않는다.

<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시력’과 같다. <자기 시력 이상>은 못 보듯이, <자기 생각의 차원> 이상은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깨닫는다. <생각의 차원>을 높이려면, 매일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도전해야 된다.

2. <모국어>도 <외국어>도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만 읽고 알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자기가 배운 만큼만, 자기가 아는 만큼만, 자기 생각 차원만큼만 보고 느끼고 깨닫고 행한다.

3. 아무리 <눈>에 보여도 ‘자기 시력’이 낮으면, 더 못 본다. 이와 같이 <생각의 시력>, 곧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그 이상의 것은 아예 못 보고 못 느낀다.

4. <생각의 차원>이 높아야 ‘귀한 말씀’도 받고, 깨닫고, 행한다.

5. 많은 청중을 놓고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도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는 ‘그 생각 이상’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6. 시장에 수천 가지 물건이 있다. 100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주고, 하루 종일 시장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 오라고 했다. 100명이 고르는 물건은 각각 다르다. 왜? ‘자기 생각, 자기 차원’ 대로만 물건이 보이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만 물건을 사 온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100가지를 사 오고, 어떤 사람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한 가지를 사 왔다. ‘자기 지능, 자기 수준,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물건을 사 온다.

7. <만물들>이 있어도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만 쓰면서 산다.

8.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환경도 만들고,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행하여 얻는다. 고로 ‘생각

의 차원'을 높여야 각자 자기 인생 문제를 풀고, 앞으로 전진하며 목적을 이룬다.

9. 육신도 '생각의 차원'대로 좋아하며 보고 듣고 다니고 행하듯이, 혼과 영도 '생각의 차원'대로 좋아하며 보고 듣고 다니고 행한다.

10. 인간 혼자서는 <자기 생각, 인간 생각의 한계선>을 못 벗어난다. '주와 같이, 성령과 같이'다.

11. <혼의 세계>에 가려면 '육'으로는 못 간다. '혼'으로 가야 된다. 그 출발점은 '깊은 생각'이다.

12. <육>으로 '육의 세계'에 가든지, <혼>으로 '혼의 세계'에 가든지, <영>으로 '영의 세계'에 가든지, 그 출발점은 '생각'이다.

13. <생각>을 깊이 하고 차원을 높이면,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많이 얻고 더 좋은 것을 얻는다.

14. <생각이 차원>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몸>이 닳도록 뛰고 달려도 애간장만 더 타고, 발바닥만 더 닳고, 얻어도 그 주관권의 것만 얻는다. 고로 행하되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행해라.

15. 모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억울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올해 받을 것들'을 다 받는다.

16. <생각의 차원>을 높이려면, '주의 생각의 뜻'을 뇌에 꽂아라. '성령의 불의 뜻'을 뇌에 꽂아라.

<2015년 8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전도하고,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하여 하늘의 신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이 보내 준 자들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내보내니, 그에게는 생명들을 연결시키지 않는다.

2. 생명을 가볍게 관리하면 안 된다.

3. 생명을 관리할 때 생각날 때만 가끔 관리하면, 생명 관리는 못 한다.

4. 생명을 관리할 때 말 안 듣는다고 관리 안 하면, 생명 관리는 못 한다.

5. 생명을 관리할 때 그 생명이 본인 생각대로 한다고 그냥 놔두면, 생명관리는 못 한다.

6. 교역자들, 지도자들은 '생명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7. 특수한 사람 몇 명만 관리하면 안 된다.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

8. 전체 교육을 하며 전체를 관리하기, 주기적으로 개인을 만나 주면서 개인을 관리하기다.

9. 교역자 임기 기간 때 교인들을 몇 번씩 만나 주지도 못하고 끝나면, 목회를 못한 것이다.

10. 교역자는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안 된다. 교역자가 '말씀을 불같이 전하며 은혜를 주는 것'은 기본이다. 지속적으로 교육해 주고 생명을 관리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

11. 월명동의 나무를 관리할 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듯 생명을 관리해야 된다.

12. <단상의 말씀>은 '삼위일체와 주'가 주는 것이다. 교역자는 '저마다 교역자로서 줄 것'이 있다. 그것을 해야 된다.

13. 교역자와만 통하는 자는 '성령의 생각'과 '주의 뜻'에서 어긋난 자다.
14. 땅에 비가 내리듯, 눈에 물을 대 주듯, 바람이 불듯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골고루 만나 주면서 대하여라.
15. 생명을 관리하고 말씀을 줘야, 그 말씀이 교인들에게 잘 들어가서 잘 이해하고 깨닫는다.
16. 생명을 관리하지 않는 교역자는 '샅꾼 목자'다.
17. 교역자는 생명들에 대해서 '뒷말'을 하면 안 된다.
18. 상대가 잘못했다고 의식하고, 말 안 듣는다고 의식하고,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의식하고, 죄를 지었다고 의식하고... 교역자는 의식하면 그 사람을 관리하지 못한다.
19. 교통이다. 소통이다. 대화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과 '설교와 강의'는 다르다. 생명과 만나서 대화하면, 그때 성령님도 주도 합당한 말씀을 주시며 대화를 이끌어 주신다.
20. 교역자들은 생명을 만나라. 대화해라. 100% 하기다.
21. 모두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교역자도, 지도자도, 교인들도 모두 차원 높이기다. 한쪽만 차원을 높이면 대화가 안 된다.

<2015년 8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에 대한 말씀은 끝이 없다.
2. <생각>이 귀하다. 크다. <생각>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3. <자기 생각>을 벗어나려면 자기 중심하지 말고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오직 주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성자 중심'하기다.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의 차원>이 한계선에서 멈추고, 그 주관권에서만 살게 된다.
4.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라. <생각>이 강해지고 두렵지 않다.
5. <생각>이 약하면 늘 위축받고, 자신이 없어 신경 쓰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근심·염려와 공포로 살게 된다.
6. <생각>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생각대로 잘못 행하게 된다.
7. <생각>이 잘못됐으면, 자기가 자기를 꾸짖어라. 그리고 절대 '그 잘못된 생각'대로 행하지 말아라.
8. <생각>이 잘못됐으면, 자기가 자신을 꾸짖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를 강하게 코치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그 몸'을 쓰고 강하게 역사하신다.
9. <섭리사 전체의 생각>을 하나로 뭉쳐라. 그런 상태에서 '각자 개성'대로 행하는 것이다. 모두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로 뭉치기다.
10.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고립된 자요, 결국 실패한다.
11. <자기 생각에 묶인 자>는 말하는 소리를 들어 보면 금방 안다.

12. <단상의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수군대는 자는 잘못됐으니, 모두 편지로 선생에게 보고하고 교역자에게도 이야기해라.
13. 지도자인데도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이 많다. 중고등부인데도 그 말을 듣고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알고, 편지로 보고한다.
14. 누구든지 모르면, 그 면에서 생각이 소경이다.
15. <생각>은 '생명의 근원'이다. <생각>에서 좌우된다.
16. 생각하기에 따라서 세 시간 잤는데 3분 잔 것 같고, 어느 때는 3분 잤는데 세 시간 잔 것 같다. <생각>으로 좌우된다.
17. <생각>이 깊이 들어가면, 세 시간을 기도해도 잠깐으로 생각된다. 깊이 들어가야 기도도 오랫동안 하게 된다.
18. 첫째, <생각>을 연단해라. 둘째, <몸>을 연단해라. 그래야 <좋은 생각, 삼위일체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몸>으로 힘 있게 행한다.
19. 아무리 <건강한 몸>이 있어도 <생각>이 연단되지 않아서 약하면 옳게, 좋게 행하지 못한다. 고로 <생각>을 연단해라.
20. 아무리 <좋은 생각, 삼위일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몸>이 연단되지 않아서 약하면 행하지 못한다. 고로 <몸>을 연단해라.
21. <몸>도 강하게 만들어야 강해지고, <생각>도 강하게 만들어야 강해진다.
22. 사람은 '생각의 잠재 능력'을 10분의 1도 못 쓰고 산다. 고로 깊이 생각해라. 혼과 영을 써라. 영계로 가면 수천 가지를 깨닫게 된다.
23.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들은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안 믿고, 불평불만을 하고, 후에 악평까지 한다.
24. 한 개인을 봐도 어렸을 때의 생각보다 컸을 때의 생각이 더 낫다. 종교 역사도 그러하다. <현 시대 새로운 역사>는 <구시대 기성>보다 '차원'이 높고 높으며 깊고 깊다.

<2015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은 선생님께서 4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쪽 이어서 쓴 하나로 연결된 잠언입니다. 요일별로 번호가 연결되었으니, 읽고 또 읽으며 뇌에 새기기 바랍니다.

1. <생각>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2.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육신의 핵인 <뇌>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각'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3. <육신>은 창조주의 귀하고 귀한 작품이다. 또한 <육신의 각 지체>는 창조주의 아름답고 신비한 걸작이다. 그중에서 <뇌>가 최고의 핵 역할을 한다. 거기서 생명의 근원인 <생각>이 발생한다.
4. <뇌>에서는 '인간의 몸을 다스리는 생각'이 발생한다.
5. <몸>에 이상이 없어도 <생각>에 이상이 있으면,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생각>이 '몸의 생명'이다.

6. <온몸>에 아무 이상이 없어도 <생각>이 고장 나면, 그 몸은 무용지물이다.
7. 혹여나 <몸의 지체 하나>가 없어도 <생각>에 이상이 없으면, 남은 지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8. <생각>이 무기력하고 <정신>에 이상이 생기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
9. <생각>에서 실패하면, 육도 혼도 영도 다 실패하게 된다.
10. <생각>은 '생각'으로 주관하고 다스려야 된다.
11. <생각>은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주관을 받아서 시동이 걸려 정신없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다가 또 하기 싫어한다.
12.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는 <생각>도 모른다. 해 보기 전에는 모른다. 모르면서도 무작정 하려고만 하고, 무작정 안 하려고만 한다.
13.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이 <육>과 같이 확인하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
14. 어떤 것은 '해야 할 일'인데 <생각>은 하기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면 <육>이 힘들기 때문이다. <생각>은 예리해서 미리 알고 '해야 할 일'인데도 안 하려고 한다.
15. <생각>에서 '필요성'을 알아야 '할 일'을 한다.
16. <생각의 착오>로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
17. <꼭 할 일>은 잘 판단하고 꼭 해야 된다.
18. <육신>이 가만히 있으면 편하니, '꼭 할 일'인데도 <생각>도 <몸>도 안 하려고 한다.
19. <현실>에서는 하기 싫어도 <앞날>을 볼 때는 해야 된다. 그때 가서 하려면 늦어서 못 한다.
20. <인간>의 생각은 '하루'도 못 내다본다. '앞날'은 더 못 내다본다. 고로 과거의 경험과 겪은 것을 보고 결정짓고 해야 된다.
21. 꼭 할 일이니 <현재>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면 '한 개'만 하면 되고, <미래>에 가서는 '열 배'나 편하다.
22. 꼭 할 일인데 <현재>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안 하면, <미래>에 가서는 '열 배'나 더 해도 안 되고, '열 배'나 더 고생하게 된다.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23.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뇌>를 창조하고 <생각>을 창조하시어, 사람이 '자기 지체'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게 하셨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이 '합당한 일'을 할 때는 도우시며 같이 행하시고,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막고 틀고 감동을 주시며 행하신다.

25.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성삼위께 영광 돌리려 하는 자는 성령님과 성자께서 잠을 깨워 주신다.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깨워 주셨는데도 본인이 안 일어나면 못 한다.
26. 하나님은 사람이 <만물>을 쓰고 누리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노력'만큼만 쓸 수 있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해 놓으셨어도 사람이 그만큼 연구해야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바람>을 창조해 놓으셨어도 사람이 그만큼 연구해야 '바람'을 사용할 수 있다. 안 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
27. 차원을 높인 사람은 <바람>을 연구하여 '동력'으로 사용하며 '전기'로 쓴다. <신앙>도 이와 같다. <뇌와 생각>으로 할 것들이 많다. 자기를 신령하게 만들어서 '그 신령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해라.
28.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하면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온다. 이와 같이 <바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선풍기로도 사용하지만, 돛단배를 만들어 노를 젓지 않고 '돛'을 '팔'로 삼아서 바람에 의해 '배'를 가게 하기도 한다.
29.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한 가지'로만 쓰지 말고, 연구하여 '수십 가지'로 써라. 사람도 <방법>을 달리하면 수백 가지로 쓸 수 있다.
30. <바람>을 이용하여 강한 돌에 구멍을 뚫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착암기'다. 착암기로 돌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터트린다.
31. <기도>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만큼 '한 가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된다.
32. <성령의 역사>로도 '수백 가지'를 하게 하신다. 감동 주어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고, 돕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등 각종 것을 하게 한다.
33. 저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각종 것들'을 하여라.
34.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인생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얻고 기뻐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된다.
35. <차를 만든 사람>은 운전하여 차가 가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각하고 행함으로 얻고 사는 것과, 인간이 '삼위의 말씀과 생각'을 받아서 행함으로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을 보고 만족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생각하면서 행하게 하신다. 일일이 손을 잡아서 끌고 다니지 않으신다.
37. 하나님은 인간을 '수동식 삶'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면서 살도록 '자동식 삶'으로 창조하셨다.
38. 자기가 행해야 그 행위로 인해 보람을 누리고, 가치를 알고,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 흥분하여 쾌감을 느낀다. -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39. 하나님은 '신의 한계선'까지만 행하시며 인간과 상응하신다.
40. 절대신은 '신의 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41.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시고, 인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휴거>되게 하신다.

42.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은 굳이 안 도우신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지구 세상 73억 명을 일일이 다 도우시다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

43. <차>에 '엔진'을 만들어서, 엔진으로 차가 달리게 해 놓았다.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끌여 주지 않는다. <차를 움직이는 방법, 운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이다.

44.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각>을 창조하여, 생각하고 행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끌여 주지도 않고, 대신 행해 주지도 않는다. 구원자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삼위의 말씀'을 받아 생각하고 행하게 하신다.

45. 부모라도 애인이라도 자기 일을 다 해 줄 수는 없다. 대신 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기>가 해야 인생 삶이 돌아간다.

46. 하나님이 밥을 대신 먹여 주면 안 될 일이다. <자기>가 먹어야 자기가 생존한다. 이와 같이 '인간 책임'도 '자기 할 일'도 <자기>가 해야 된다.

47. <생각>도 '자기가 할 생각'은 자기가 해야 되고, <실천>도 '자기가 행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48. 자기가 안 하려면, 존재할 필요도 없다.

49. 사람은 생각함으로, 행함으로 존재한다.

50. 그러나 <불법>을 생각하고 행하면서 존재하면, 문제가 생겨서 존재하지 못한다.

51.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생각'을 가지고 존재해라.

5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구원자를 통해 하시는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삼위의 생각'으로 행해라. 그러면 <육>은 이 세상에서 이상적으로 살고, 그에 따라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53. 인간을 자세히 보면, 아주 다양하게 유능하게 창조되었다. <육체>가 있고, <마음·정신·생각>이 있고, 신 같은 <혼체>가 있고, 신같이 최고 유능한 <영체>가 있다. 이 <영체>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 영원히 살아갈 가장 차원 높은 존재다.

54. <육체>가 있으니 '육의 세상'에서 쓰여지며 행하고, <혼체>가 있으니 '혼의 세상'에서 행하며 '제2의 육체 역할'을 하고, <영체>가 있으니 '천국'에 가서 능력껏 행하며 자기 육신을 돕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체>이기 때문에 '육의 세상'에서 행하실 때는 직접 행하지 못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인간의 영과 혼>도 '육의 세상'에서 물건을 옮기는 등 '육'같이 행하지 못한다. 고로 '자기 육'을 통해 행한다.

55. 자기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려면 행해야 된다. 그러나 <육>은 '영의 세계의 것들'과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은 못 보고, '인간의 한계 이상의 것들'은 못 하니, 땅뿐만 아니라 영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묻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여라.

56. <인간의 한계 이상의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여라. 그러면 '감동'을 주며 도우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 도우시고, '육신 가진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만물'을 통해서 도우신다. 그런데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행했다고 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을 통해서 도우니 그 사람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사람이 도왔다고 해도 안 되고, 만물을 통해서 도우니 만물이 해 준 것으로 알고 만물이 도왔다고 해도 안 된다. '근본자'를 모르

면 안 된다.

57.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생각>과 <주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삼고 행해라.

58.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운>은 ‘행하는 자’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로 흐른다.

59. 행할수록 유능해진다.

60. 불의를 행할수록 불의가 모아져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맞게 된다.

61. 불의를 행하는 자는 매일 <사망길>로 간다. 현재에는 모른다. 그러나 결국은 <사망>이다.

62. <생각>에 따라서 ‘육의 행실’도 형성되고, 그에 따라 ‘혼과 영’도 변화되고 형성된다.

63.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 삼위의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으로 매일 의롭게 행하기다.

64.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인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이는 인간들을 구원하고 그 영을 휴거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기쁨으로 살기 위함이다.

65. <구원자>를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서 <행실의 차원>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혼과 영의 차원>도 높아져서 ‘차원 높은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

66.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행실의 차원>이 좌우된다. 그에 따라서 <자기 영이 갈 영의 세계의 차원>이 결정된다.

67.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생각이 ‘신’이 되게 해라. 그러려면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생각이 ‘신’이 된다.

68. ‘생각이 신이 된다.’ 함은 ‘자기 생각에 신의 말씀을 받았으니, 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함이다. 고로 그 <육>도 그 차원에서 행하며 신과 같이 살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 <영>은 그 차원으로 변화되어 신과 같이 살게 된다.

69. 모든 인생들을 보아라. 세상에서도 <생각의 차원>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간다.

70. <신의 생각>과 같아야 ‘신’과 통한다.

71. <자기 생각>을 ‘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라.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여라.

<2015년 8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72. <신의 생각>과 연결되어야 ‘신’과 하나 된다.

73. 모양과 형태가 달라도 ‘연결된 것은 하나’다.

74.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연결되면, 삼위와 하나다.

75. 어떻게 삼위일체와 주와 연결되겠느냐.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절대 말씀을 믿고 행하며, 절대 일체 되어 행하기다.

76. <주>를 따라오다가도 주와 하나 되지 않으니 떨어져 나가서 거짓으로 악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자들이 되었다. 그들은 삼위일체와 주와 연결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 ‘사망길’로 다니고 있다.

77. 신랑이 신부에게 “너 정말 ‘생각의 끈’으로 나를 100% 잡아서 맺느냐?” 했다. 이에 신부가 “네.” 하며, 공중에서 뛰어내렸다. 신랑과 하나 된 신부라면 공중에서 ‘낙하산’을 달고 뛰어내리는 것이고, 신랑과 하나 되지 않은 신부라면 공중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것이다. 맨몸으로 뛰어내린 자는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떨어진다. 아래는 바위 절벽이다. ‘머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바위’가 깨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적은 1000만 분의 1이다. 주와 하나 되지 않고 ‘지금’ 맨몸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도 있고, 이미 떨어져서 안 보이는 자도 있다. 주와 하나 되어라. 하나 되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자꾸 차원 높여 <하늘>로 올라간다.

78. <주>는 ‘생명줄’이다. <자기 몸>에 완전히 매라. <자기 생각>에 완전히 매라. 그래야 공중에서 뛰어내려도 안 떨어진다.

79. <주>라는 ‘생명줄’을 안 맨 자, 맺어도 형식으로 허리에 두르기만 한 자는 여지없이 아래 절벽으로 떨어진다.

80. <주>를 ‘생각의 줄’로 쫘쫘 맨 자는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간다.

81. <삼위와 주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미 그 영은 사망으로 떨어져서 사망권의 한 지역에서 헤매고 다닌다.

82. <육신>도 높은 데서 떨어지면 살아도 불구가 되고, 고치기까지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재활 치료를 해도 평생 불구로 살아간다. <영>도 ‘주와의 관계, 연결’이 끊어져 사망으로 떨어지면 이와 같은 영향을 받는다. 어떤 영은 자기 육신은 체구가 크고 멀쩡한데도 난쟁이 영이 되어서 산다.

83. <영>도 <육>도 ‘주’와 하나 되지 않고 떨어지면 ‘사망의 삶’을 산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1차 ‘흑암의 세계’로 간다.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2차로 ‘지옥 문전’에서 걸식하면서 살게 된다. 거기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다가는 3차로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갈 자격자가 되어 ‘지옥’으로 들어간다.

84. <지옥>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세계다. 고통의 바람이 ‘뜨거운 불꽃’이 되어, 그 불꽃이 화산 폭발하듯 자기에게 불어 닥친다. <지옥>은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딘다. 펄펄 끓는 쇳물이 태풍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듯 높이 치솟는다. 그것을 보는 영들은 너무 놀라서 기절하고 쓰러진다. 그리고 ‘꿈인가?’ 하고 쳐다보면, 그 끓는 쇳물이 마치 댐의 문을 열어 놓으면 무섭게 내려가듯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간다. 그리고 자기 몸을 거쳐서 흘러간다. 지옥에 가면 이런 고통을 받는 줄 모르고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지 않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역사를 방해하고, 삼위일체가 보낸 시대 사명자를 막고 악평하며 갇은 거짓으로 괴롭힌다. 살 길은 오직 ‘회개’와 ‘온전히 사는 것’뿐이다.

85. <휴거된 자>는 ‘뜨거운 불꽃같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받고, 자기도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86. <지상의 육의 삶>이 <영원한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다.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87. <휴거된 자>는 ‘천국 황금성 시민권’을 얻었다. 그래도 <육>이 <영>과 연결되어 지상에서 사는 한, 영이 육의 영향을 받으니 <생각>을 ‘삼위일체와 주의 생각’으로 무장하여 ‘자기 육’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된다. <생각>이 ‘삼위와 주와의 연결됨’에서 끊겨서 <생각>을 다른 데 뺏김으로 <육>이 타락하거나 가치를 모르고 제 갈 길로 가면서 살면, <휴거된 영>이 ‘천국 황금성’에서 쫓겨나고 ‘휴거’를 상실하게 된다.

88. 휴거 700선까지 도전이다.

89.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른이나 모르면... 망하고, 실패하고, 다치고, 사고가 나서 죽는 것이다.

90. 아는 것이 ‘신’이다. 아는 것이 ‘행복’이다.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냐.

91. <의의 생각>이 강철 기둥 같아야 성공한다.

92. 왜 너희는 ‘짐승 같은 수준에서 사는 악평자들의 말’을 듣고 헛갈려하고 흔들리느냐.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이 써 놓은 글을 보면, 한동안 하루에 100번씩 “악평자들은 사탄의 몸이다!” 하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책망하며 ‘입의 막대기’로 쳐라! 그러면 그것이 ‘의’가 되어, 하나님은 잘했다고 하시며 ‘악인들과 악평자들의 소행’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로 인해 승리하고, 그 의로 ‘생각의 차원, 행실의 차원, 휴거의 차원’이 더욱 높아진다.

93. 휴거됐느냐. 그러면 삼위일체 안에서 더욱 여러 가지를 깊이 높이 생각하고, 다양하게 행하여라.

94. <더 좋은 휴거, 더 차원 높은 휴거>는 ‘육의 생각’에서 이루어진다. <육>이 더욱 생각을 의롭게 하고 의롭게 행해야 된다. <육>이 <휴거된 영의 생각>을 받아서 행해야 된다.

95. ‘휴거된 자기 영과 대화’다. ‘삼위일체와 주와 대화’다. 이런 자가 신령하게 되고, 영적 차원이 높아지고, 휴거 차원도 높아진다.

96. 휴거됐어도 ‘휴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몰라서다. 감사해라. 기뻐해라. 휴거됨으로 결과가 어떠한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닫고 살기다.

97.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발을 살 때는 기뻐하며 샀다. 그런데 ‘자기 것’이 된 후에는 기쁨이 식는다. 사용할 줄 몰라서다.

9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휴거된 영들>을 보시고, 생각도 형체도 삼위와 닮았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이니 마음에 쏙 들어 하시며 매일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 육신>은 ‘육’이라서 모르고 산다. 가르쳐 줬으니 매일 감사하고, <육>도 <휴거된 영>과 같이 기뻐하며 살아라.

99. <자기 육>이 부지런히 배우고, 갖은 어려움을 이기고, 애타게 행하여서 <자기 혼과 영>을 휴거시켜 났는데, 왜 <육>은 ‘그 가치와 기쁨’을 모르고 계속 고생하며 사느냐. <생각>을 잡아라. <생각>에서 ‘휴거의 가치와 기쁨’을 느낀다.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육의 삶이 끝나면, <혼>이 <육신>을 벗고 <영>과 하나 되어 아예 ‘천국 황금성’에 가서 살게 된다. 얼마나 좋고 기쁘냐.

100. <휴거의 기쁨>을 뺏기지 말아라. <생각>에서 무지로 인해 ‘휴거의 기쁨’을 뺏기고 살지 말아라. 모르고 사는 것처럼 억울한 것도 없다. 잊지 않기 위해 생각해라. 잊지 않기 위해 휴거의 삶을 살아라.

101. <생각>을 ‘신’으로 만들어서 살아라.

102. <생각>이 신이 되려면, 구원자를 통해 ‘삼위일체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함으로 ‘삼위의 생각, 주의 생각’으로 무장해라.

103. <신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 들어오니, 자기도 <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과 같이 행하게 된다.

104.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이성의 향락과 세상 향락을 누리며 살아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없다. 가다가 ‘육’으로 끝나고, ‘그 행위’대로 다 받게 된다. 결국 ‘그 영’이 펄펄 끓는 쇠물이 출렁거리며 파도치는 불바다에 가게 된다. 이것을 생각해라. 잊지 말아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105. 매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매일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생각해라. 주를 생각해라.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생각하면 ‘생각의 눈’으로 매일 보게 된다. 삼위일체는 살아 계시고 주는 살아 있으니, 생각하면 보이고 느껴진다. 잊지

않고 사니, 매일 함께 사는 것이다.

<2015년 8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06. 매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생각>을 써라. 생각하면 ‘구상’이 떠오르고, ‘할 일’이 생각나고, ‘삼위일체와 주’도 잊지 않고 느껴진다. 선생도 <생각>을 놀리지 않고, 4시간 동안 선풍기도 없는 37도의 찜통더위 속에서 ‘더운 것, 배고픈 것’을 생각하지 않고 100여 개의 잠언을 썼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새벽에 전해 준 잠언이다.) <생각>이 힘들고 <몸>이 힘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했다. 중간에 너무 더워서 힘드니 ‘쉬었다가 해야지.’ 생각했는데, <생각>이 다시 ‘과연 쉬는 게 좋을까?’ 했다. 그때 ‘아니다. 생각났을 때 연속해서 하자. 사막 길이 너무 더운데 빨리 안 지나가고 덥다고 쉬면, 모래바람이 불어와 고생한다. 빨리 지나가야 된다. 빨리해야 된다.’ 생각하고, 계속했다. 계속 잠언을 쓰고 있으니 조금 시원해졌다. 깨닫고 보니, 마음 변하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며 ‘일편단심’으로 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원하게 해 주셨다.

107. <하다가 쉬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힘들어도, 하다가 쉬면 정신 일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으로 하지 못하니 계속해야 될 일>도 있다.

108. 힘을 받고 날아다니는 ‘기적’을 보려느냐. 네가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기적’을 보여라. 삼위일체가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면, 너와 함께하여 ‘기적’을 보이신다.

109. <전능자가 함께하는 것>이 ‘기적’이다.

110. 고기는 씹을수록 맛있고, 사랑은 사랑할수록 맛있고, 차원은 높일수록 맛있다.

111. 고기는 씹는 맛, 사랑은 사랑하는 맛, 차원은 높이는 맛이다.

112. ‘행한 만큼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113. <마지막 끝>에는 한 만큼 힘도 빠지지만, 극치의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다. 고로 그것을 놓고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다! 어리석은 자들은 ‘극치의 순간’을 놓고 도망치고 섭리사를 떠났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준비하신 휴거 역사>가 시작되었다. 떠난 자들만 놓쳤다.

114. <해야 될 일>은 끝으로 갈수록 정말 힘들고 죽기보다 더 하기 싫다. 그때 도망치지 말고 해야 된다. 곧 <밭에 감춰진 보화>가 화산처럼 폭발된다. <보화>가 폭발되어 ‘자기 뇌’에 부딪힌다. 이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몸부림쳐 행하여 그 보화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라.

115. <최고의 것을 얻기 직전>인데 어떤 고난, 핍박, 어려움, 고통, 억울함을 생각하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116. <최고의 것>을 얻었다면 어떤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고통도, 억울함도 값을 치르고도 남아서 영원히 얻고 누린다.

117. 성공하려면 끝까지 해라.

118. 자기가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랑해라. 작은 일도 행했다고 말하며 자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119.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 자는 <생각이 좋은 자>요, <행한 자>다.

120.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좋은 것 하나’를 골라서 행해라.

121. 잘못 골라서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을 골라서 행하면, 육도 혼도 영도 실패다.

122. 인생은 ‘고르기’다.

123. 사람도 잘못 골라서 ‘염소’를 골랐더니, 배신하고 떠났다.

124. <성격>을 보면 염소인지, 양인지, 늑대인지, 여우인지 안다.

125. <좋은 생각>이 보화다. 그 생각을 실천하니 <좋은 것>을 얻는다.

126. <양>인데도 떠받아 버릴 때가 있다. <염소>와 같이 있다가 염소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때 망치로 머리를 몇 번 때리면 안 한다. 망치는 ‘말씀의 망치’다.

127. 하루는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하는 성자의 계시가 있어서, 하루 종일 생각했다. <육>이 매여 있어 생각해도 행하지 못하니, 결국 <내 혼>을 불렀다. “산에 가서 수석을 줍자. 네가 가 봐. 내 고향이니 많이 다녀서 잘 알지? 생각해 보니, 그곳에 ‘사람 모양의 수석’이 있을 것 같아. 나 육이 못 가니 너 혼이 가서 보고, 내게 말해 줘.” 했다. <내 혼>이 그 지역에 가서 보고는 ‘수석’이 있다고 했다. 어떤 모양이냐고 하니 “사람 얼굴 모양도 있고, 동물 형상도 있고, 수석 몇 개가 있어.” 했다. 그래서 “그러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낼 거야. 확실해야 돼.” 하니, <내 혼>은 “확실해.” 했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내 혼>이 말한 대로 ‘사람 모양, 동물 형상 수석’이 있어서 주었다. <혼>도 자꾸 행하니 점점 ‘좋은 돌’을 찾았고, 후에는 ‘제법 좋은 돌’을 잘 찾았다. 그러다가 ‘바위 형상’까지 찾았다. <내 육>이 다시 <내 혼>에게 말했다. “월명동으로 못 가져와도 좋으니 거기 두고 보게 돌이든, 바위든, 나무든 아무거나 좋은 것이 있는지 봐. 큰 나무 작품도 있는지 봐.” 했다. 결국 <내 혼>이 ‘큰 나무 작품’을 찾았고,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니 ‘외부에서는 사 올 수 없는 거목’이 있었다. 오늘은 색다르게 ‘월명동 산맥의 모양’을 봤다. 먼저 <내 혼>이 가서 보고, <내 육>에게 알려 주었다. 그 좁은 지역에 ‘여섯 개의 산맥’이 뒤엉켜 질서 있게 둘러싸고 있었다. 환상적이었다. 그런 것을 <구상박물관>에 전시해 놓을 테니 보면 된다. 생긴 모양이 예사롭지 않고 신비하다. 생긴 대로 ‘보화’가 묻혀 있다. ◎ 잠언을 다 쓰고 나니 손이 저리다. 4시간 45분 동안 썼다. 이 잠언은 일주일 동안 나눠서 새벽 잠언으로 내보냈다.(8월 17일 월요일부터 8월 22일 토요일까지의 새벽 잠언) 오후 2시 45분이 되었다. 이제 점심 먹어야지. 성령님께 “나 끝까지 썼어요.” 하니, 성령님은 “결국 끝까지 하여 흥분의 단계에 올랐구나. <일>을 사랑하는 나 성령으로 보고 끝까지 해라.” 하셨다. <할 일>이 끝도 없다. <잠언>도 끝도 없다. <말씀>도 끝도 없다. 하루가 몇 시간 같다. 그러나 이것으로 ‘성약의 책’이 나오니 보람이다. 해야 된다.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잡고 다녀도 생각을 안 하면 못 느낀다.

2. 생각해야 느낀다.

3. 생각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느낀다.

4. 생각하고 있어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시면 느낀다.

5. 눈을 뜨고 있어야 누가 지나가도 보고 알게 되듯이, 생각하고 있어야 삼위일체와 주가 역사해도 느끼고 알게 된다.

6. 생각해라. 그래야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면 알게 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려면, 잊지 말아라. 늘 생각이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잊었을 때는 ‘고아’다.

9. 주를 생각하고 있는 자는 그가 역사할 때 깨닫고 행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고 있어야 만물로 계시해도 즉시 깨닫고 알게 된다.
11.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않는 자는 눈을 감고 있는 자와 같아서 삼위가 옆에 와 계셔도 모르고, 만물로 계시해 주셔도 모른다.
12. 따지면 내가 이겨. 그런데 내가 손해다.
13. 안 따지면 내가 져. 그런데 내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안 따지고 희생하고, 갈 길 간다.
14. 그러나 따지고 내가 이기고 가면, 나도 너도 유익이다. 왜? 따지고 이기고, 내가 이끌고 가기 때문이다. 알고 행해라.
15. 살았을 때 살려야지, 때 지나고 죽은 시체를 살리려 하느냐. 죽은 시체를 살린다고 살아나냐. 죽은 시체는 장사를 치러 줘야 된다.
16. 생명은 '제때' 살리는 것이다.
17. 생명은 '시간'을 다투면서 살거나 죽으니, 때 지나면 살리기 어렵다.
18. 곡식도 손이 안 가면 못 크다. 생명도 그러하다.
19. 곡식을 보아라. 주인의 손이 얼마나 많이 갔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많은지 적은지가 좌우된다. 생명도 그러하다.
20. 어떤 자들은 섭리사에 살면서 '한두 달'도 아니고 '한 시대'를 두고 <사망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 '스스로' <사망 길>로 가다가, 때가 되어 어느 한 날에 <사망의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엄청나고 <떨어지는 강도>가 너무 세서, 손을 내밀 수가 없다.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가 없고, 또 손을 내밀었다가는 그 속도와 강도 때문에 같이 떨어져 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21. 제때 돌이켜라. 손을 잡아 줄 때 돌이켜라. 떨어지기 전에 돌이켜라. 그리고 제때 잡아 주고, 떨어지기 전에 잡아 줘라.

<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것이라도 막상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힘든 것이다.
2. 참고 견디며 희생하면서 해결하고 가는 고통보다, 다투면서 해결하고 가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자기가 억울하게 되었다고 굶고 다투면서 가는 자를 보고서 쓴 잠언)
3. 내가 아픈 것을 통해 연구하여 약을 제조해 바르니 나았다.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주니, 내가 아팠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뜻이 있었다고 생각되면서 기뻐다.
4. 자기의 아픔으로 아픈 자를 생각하게 된다.
5. 인간은 평등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자기가 월등하다고 생각하며 남을 무시하는 자는 마치 파도가 칠 때 같이 너울거리듯, 민족의 자존심을 등에 업고 그리 생각할 뿐이다.
6. <사연>이 없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 한다.

7. <사연>이 있는 곳에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의 일’이 있다.
8. 아무리 만들어도 ‘웅장한 자연’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 만들어진 곳으로 옮겨라.
9.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것도 ‘자기 것’이 되면 자나 깨나 관심이다.
10. 처음에는 싫다 하던 곳도 ‘자기와 관련’이 있게 되니, 그 지역의 나무들도 바위들도 다시 귀히 보이게 된다.
11. 처음에는 새롭고 놀랍다. 그러다 계속 보면, 마치 높은 곳을 처음 볼 때는 놀라다가 자주 보면 보통 높이로 보이듯 한다. 그러다가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리 보게 될라. 그러나 높으신 삼위일체를 높게만 멀리 보다가,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앞에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은 좋은 것이다.
12. <보이는 세계의 것>을 발견하기는 쉽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발견해야 된다. <자기 육의 생각의 작동>에 따라서 ‘영’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
13. <자기 생각>이 무너진 것은 <방주>가 터진 것과 같으니라.
14. 왜 <자기>를 못 지켜서 사탄·마귀·악평자들에게 당하느냐.
15. <자기 생각>이 ‘신’이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굳건히 지켜라. <자기 생각>은 약하니 ‘성삼위와 주의 뜻’을 달아라.
16. 사탄은 ‘자기’가 이겨야 된다. 사탄은 ‘자기 삶 속의 틈’을 보고 들어오니, 각자 자기가 이기는 것이다.
17.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성삼위께 기도하며,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영적 힘을 받고 결심하고 이기기다.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선생이 이번 주 주일말씀을 보면서 5시간 동안 쓴 잠언을 꼭 전해 주겠습니다.

1. 모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와주시는데도 불평불만 한다.
2. 어느 때는 <하면 해가 되는 일>인데 그것을 모르고 하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상황을 틀어서 안 되게 하며 도우신다. 삼위일체가 도와서 그것을 안 하여 해를 안 받았는데도, 모르니 불평하며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한다. 무지 속의 상극 세계다.
3. 도와줬는데도 모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심정이 상한다.
4. 네 생각대로 안 됐어도 ‘하늘의 도움’을 받았으면 잔치해라. 네 생각대로 됐다면, 끝에 가서 얼마나 손해가 갈 것인지 깨달아라.
5. <신의 생각>으로 살려면, 신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을 깨달아라.
6. 스스로 깨닫기 어려우니, ‘깨달고 아는 자’가 모두 알도록 한꺼번에 말하여 모두에게 알려 주어라.
7. 삼위일체가 해 놓으셨어도 깨달지 못하면, 보고도 모른다.
8.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실까?’ 한다.

9. 전능자가 ‘너’를 생각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지 말라고 <구원>하고 <휴거>시켜 주었다.
10. <영>이 기약 없이 영원히 고통받지 않도록 ‘구원하고 휴거시켜 주는 것’이 그리도 크다.
11.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가 돕는 것을 깨달아라. 그래야 자꾸 돕는다. <마음>을 알아주고 <해 준 것>을 알아줘야 자꾸 돕는다. 모르면, 도와주고 해 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12.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가 도와줬다는 것을 깨달아라. <우연>으로만 보고 <생활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습관이 되고, ‘뇌의 생각’이 그렇게 조립되어서 늘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 고로 삼위의 역사하심이 점점 멀어진다.
13. <휴거>는 ‘영이 천국 황금성으로 가서 성삼위와 사는 것’이다. 고로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휴거되지 못한다.
14. <휴거>는 ‘천국 황금성으로 올라가는 것’이니, 천국에서 삼위일체가 먼저 행하시며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천국>에서 ‘삼위일체’가 행하며 이끄시고, 나머지는 <땅>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할 것을 행함으로 <휴거>를 이룬다. 휴거되면 <영>은 ‘천국 황금성’으로 가고, <육>은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1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큰일’인 <휴거>를 ‘시대 구원자’를 통해 행하셨다. 감사하고 감격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대하는 삼위일체의 마음이 달라진다.
16. 모르면, 도움을 받고도 투덜댄다.
17. 모르니, 구원받고 휴거됐어도 투덜대며 구원과 휴거를 상실한다.
18.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이 사랑하니 살결을 시원하게 해 주셨는데, ‘가을이 와서 시원한가? 시원한 공기가 지나가네?’ 한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괜히 와서 심정 상하는 꼴만 당했네.” 하신다.
19. 좋은 일을 당해도, 나쁜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주’를 생각하며, 대화하면서 의문을 풀어라.
20.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행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자기에게 해 주셨으니, 자기에게 얼마나 표적의 일이며 기쁜 일이나.
21. <표가 나게 일어난 표적>을 보았느냐. 그것은 모두 전능자가 틀고 막으면서 ‘합당한 자’를 통해 행하신 일이다.
22. 전능자는 그때마다 <만물>, 또는 <사람>을 사역자로 삼고 행하신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연의 현상이다. 사람을 행했다.” 하게 된다.
23.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는 것을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 하나님은 ‘그때마다 합당한 만물이나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
24. <전능자 하나님>은 ‘신’이시다. 고로 육신 쓴 인간과는 직접 못 통하니, ‘만물’을 보여 주면서 깨닫게 하신다. -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상상하니 만물들이 뇌에 스쳐 가면서 생각이 났다.” 한다.
25. 사람들은 한 단계 아래에 있는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행하셔도 모르고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될 때도 있다.”라고만 생각한다.

언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26.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인생들을 살피시며 <천사>를 통해 행하시고, <사람>을 통해 행하시고, <만물>을 통해 행하시고, <감동>을 주며 행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 주며 행하신다.

27.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다. 이것은 누구나 ‘행한 대로 얻는 것’이다. 곧 <의>를 행하면 ‘복’을 받게 하였고, <불의>를 행하면 ‘심판’을 받게 하셨다.

28. 불법을 행하면서 순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행한 대로 고통을 받게 된다.

29.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이 도와줘도 <육>은 겨우 느낄 뿐이다.

30. 아둔한 자는 육적으로만 생각하니, 깨닫지 못한다.

31. 삼위일체는 때에 따라 ‘가랑잎’을 스치게 하면서까지 계시하며 깨닫게 하신다. 이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깨닫는다.

32. 작년에 무더위 속에서 수련회를 하니, 하나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해 주셨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수련회 때마다 비가 오네? 날짜를 잘못 정했네.” 하며 아쉬워하고 투덜대기도 했다. 고로 올해는 ‘비 한 방울’ 안 오게 하셨다. 그러니 “더워 죽겠네. 왜 이런 날 수련회를 하지?” 하며 투덜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련히 알고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련회 때마다 비가 온다고 투덜대니, 올해는 비가 안 오게 해 주셨다. 비가 안 오니 더워서 쓰러진 것이다.

33.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해라. <때>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4. <더울 때>는 ‘비가 오는 것’이 축복이고 기적이다.

35. 비가 오는 것의 장단점이 있어도 더울 때는 비가 와야 축복이다.

36. 겪어 봐야 알고, 깨달아야 안다.

37. 작년 수련회와 금년 수련회를 겪어 보고 비교하니, ‘비가 오는 것이 좋구나!’ 깨달았다. 만사가 그러하다.

38.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어련히 알고 때마다 알아서 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39.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빛이 나도 감사해라. 이것저것 따져 가며 감사하려면, 감사할 것이 없다.

40. 비가 오면 샤워하며 감사하고, 햇볕이 뽀뽀 비치면 그늘 속에 들어가서 감사해라.

41. 선생은 예전에 비가 오면 산에서 비누칠을 하며 때를 밀고 목욕했다. 소나기가 내리면 10분 동안은 오니까 빨리했다. 그때부터 비 온다고 투덜대지 않고 비 오기를 기다렸다. <생각>을 잘해야 ‘희망’으로 산다. 지금도 내 몸이 갇혀 있다고 투덜대지 않는다. ‘갇혀 있으니 집중해서 깊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역사에도 남기자!’ 하며 매일 희망으로 행한다.

42. 깨달음은 ‘자기 생각, 자기 수준’대로 온다.

43. <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도 ‘자기 생각’대로 깨달음이 온다. 섬기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느끼게 되어 ‘자기 종교’가 된다. 그러나 실상은 ‘자기 생각’대로 느끼고 섬기는 것일 뿐이다. 실상은 믿어도 섬겨도 ‘구원’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어라. 그래야 ‘절대 구원’이다.

44. 자기가 돌이나 나무나 물 같은 <만물>을 섬겨도 그것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준다. '자기 생각'대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의 구원'은 못 준다.
45. 항상 짐승보다 나은 생각을 해야 사람이 되고, 사람보다 나은 생각을 해야 '전능자의 상대체'로서 '신'과 같이 된다.
46.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데도 기분 나빠 한다.
47.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데, 뭐가 기분 나쁘냐. 당연하지.
48. 행할 때는 '세상 쾌락'을 느끼며 행하고, 후에는 그 대가로 '고통'을 받는다. '쾌락'보다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그 대가로 '영원한 고통'까지도 받는다. 고로 고생해도 생명길로 가라.
49. 세상에 빠져 불의를 못 참고 행할 때는 좋아하다가, 후에 그 대가로 '고통'을 받을 때 참으며 살지 말아라. 불의와 쾌락 앞에서 참으면서 고통을 받다가, 후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그 기쁨은 참을 때 받는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된다.
50. <불의를 참는 고통>이 크겠느냐. <불의를 행하면서 잠깐 누리다가 후에 그 대가로 오는 고통>이 크겠느냐.
51. 악평자들을 악평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 뜻을 이룬다. 그 대가로 <전능자의 법>에 걸려서 '그 영'은 옥에 갇히고, '그 육'은 지상 흑암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52. 불의를 행하면서 순간 스트레스를 풀고 그 대가로 평생, 혹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악한 행위>는 '하나님의 정한 날'에 모두 심판을 받는다.
53.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실컷 죄를 지어 놓고 회개한다.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지은 것을 다 계산하시고, 회개한 것도 다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
54. 알고 짓는 죄는 계획적이라서 행한 대로 받게 된다. 그 후에 하나님이 계산하여 따지신다.
- <2015년 8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선생이 이번 주 주일말씀을 보면서 5시간 동안 쓴 잠언을 새벽 잠언으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잠언을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55. 하나님의 행하심과 도우심을 알고 즉시 감사해라.
56. 제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5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도우실 때는 아둔하여 자기중심으로 행하고, 때 지난 후에 그제야 감사한다. 감사를 받을 자는 이미 떠난 지 오래되었다.
58. 삼위일체가 도우실 때 깨닫고 즉시 감사하는 자는, 애인이 사랑해 줄 때 기뻐하며 좋아하는 자와 같다.
59. 감사도 늦고, 기도도 늦고, 전도도 늦고, 관리도 늦고, 찬양도 늦고, 예배 시간에도 늦고, 할 말도 늦게 한다. 그러니 답답하다. 모든 것은 '제때' 해야 된다. <때>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60. 몸의 병도 제때 고치면 고치고, 늦으면 못 고친다.
61. 도울 때는 아쉬워하고, 투덜대고, 자기중심으로 살고, 불만을 쏟아 놓는다. 그러니 도와줘도 모른다.

62. 2015년 첫 수련회를 생각해라. 그날을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어렵히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사랑해라.

63. 삼위일체가 도우신 것에 대해 ‘순간’만 ‘그날’만 감사하고 지나가지 말아라. 약아빠지게 행하지 말아라. 구약 때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후손들은 4000년 동안 설교하면서 감사했고, 신약 때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님과 주와 함께 선조들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후손들은 2000년 동안 설교하면서 감사했다. 왜 당세에 겪고 받고 사는 자들이 그날만 생각하며 감사하다고 하고 끝내느냐. 그러면 정말 아둔한 신부다. 그러니 줄 것도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준다. 모르니, 줘도 못 쓰기 때문이다.

64. 성자가 귀한 것을 주셔서, 선생은 그 사연을 3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수시로 감사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은 것을 또 주셨다. 왜 줬냐고 물으니, 성자는 “그로 인해 또 새롭게 사연을 나누며 이야기하려고 줬다.” 하셨다.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연을 나누며 진정 감사해라.

65. 애인이 사랑해서 옷 사 줄 때는 탄 생각 하고 있다가, 옷이 거의 떨어졌을 때 옷 사 줘서 감사하다고 한다. 아둔한 하늘 신부들도 삼위일체 앞에 그리한다. 바늘로 뇌를 찌시는 듯한 말씀이다.

66. 하나님과 성자가 그때마다 합당하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때는 못 느끼고, 떠나니 그제야 느끼며 “아쉬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한다. - 생각이 발달된 최첨단 역사에 살면서도 소가 모는 수레를 타고 다니듯, 생각이 느리게 돌아가는 자다.

67. 사랑해 줄 때는 낮이 나가 있다가, 책망할 때는 깨닫고서 “나도 사랑해요.” 한다. 박자가 느리니, 같이 박자 맞춰 살 수 없다.

68. 때가 되어 고독하고 외로운 사막 길을 다녀 봐야 그제야 목 놓아 부르짖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벌 기간>이 지나서야 대답하신다.

69. 전능자는 ‘머나먼 앞날’을 아신다. 고로 ‘가시밭길’이라도 그 길이 ‘결국에는 좋은 길’이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고생해도 그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자>는 ‘자기가 생각한 좋은 길’로만 가려고 애간장을 태우며 산다. 성삼위와 주와 한 몸 되어 살아야만 깨닫고, 사서 고생하지 않는다.

70. 사랑해도, 심판해도 한 세월이 다 간 후에 전능자를 불러 말하느냐.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고 찾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71. 심판할 때는 가만히 쳐다보다가 화를 받고, 화를 다 받은 후에 도망가니, 하늘에서 웃음소리 들려온다.

72. 세상만사 모든 일은 전능자가 거의 다 행하신다. 보고 들으면서, 모두 ‘전능자와 연결’해서 생각해라. 그리고 깨닫고서, 즉시 ‘할 말’을 하고, ‘삼위의 대상체로서의 할 일’을 해라.

73. <하나님의 계획적인 심판>인데 ‘우연의 자연재해, 인간의 실수’로 그릇 판단하여 무지 속에 죄를 짓고 매 맞지 말아라.

74.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병으로 치며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자기 건강관리’에 게을렀기에 아프고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다.

75. 전능자는 이것저것 총동원하여 ‘지구, 만물, 인간’을 조종하신다. 삼위일체가 137억 년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어 뜻을 이루시는데, ‘할 일’을 안 하시고 다 내팽개치고 사시겠느냐. 마음이 가는 대로 다 행하시는데, 수백만의 만물의 사역자를 통해서 행하시고, 천사를 통해 행하시고, 합당한 사람을 통해 다 행하신다.

76. 전능자와 하나 되어 있으면, 그 행하심을 즉시 안다.

77. 삼위일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행하심을 보고도 모른다.

<2015년 8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78. 연결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 잠자는 자다. 그래서 <휴거 역사>를 했어도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다. 자신들이 못 했으니 불신하고 외면해야 편하지 않겠느냐.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영의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 수작이 맞다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겠느냐.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정한 뜻을 이루셨다.

79. 과거 역사를 보아라. 아브라함 때에는 전체에서 아브라함 한 명만 하나님을 믿었어도 '아브라함'과 '그의 처, 사라 한 명'만 데리고 역사를 펴셨다. <이 시대 휴거 역사>를 보아라. 한 명뿐이나. 37년 동안 역사를 행하면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정한 뜻'을 이루고 끝내셨다. 하나님이 미련을 두고 아쉽다고 하시더냐. "만족하다." 하셨다.

80.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행한 대로 만족하다 하시며 그 역사를 매듭짓고, 다음 역사를 하셨다.

81. 예수님 때를 보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구시대 율법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새 역사로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길바닥에 앉아서 하소연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믿고 새 역사를 맞은 자들을 보고 역사하시고, 2000년 동안 보란 듯이 역사를 펴 나가셨다.

82. 신약 이후 성약의 새 역사도 그러하다. 구시대 기성인들이 안 왔어도 행한 대로 구시대에 살게 하시고,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을 데리고 <정한 휴거의 뜻>을 다 펴시고, 1000년 역사를 펴 나가고 계신다. 당세에도 이러한데, 수백 년이 가고 천 년이 간다 해서 구시대 기성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한 역사>를 짐작이나 하겠느냐.

83. 월명동 그 좁은 골짜기에 엄청나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는데, 제 삶 속에 빠져 사는 구시대인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환영하겠느냐. 늙은 자들이 안 알아준다고 하나님이 영향을 받고 새 역사를 행하심에 주춤하시겠느냐.

84. 삶이 다르니, 그들은 제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다. 자기 인생살이 숨 가쁘다.

85. <성약역사, 휴거 역사>는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 역사를 깨닫고, 성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영원히 행복하다.

86. <이 시대 보화>를 찾고 사는 자들아, 미련 없이 살아가라!

87. 처음에 선생 홀로 이 역사를 깨닫고 올 때도, 세상 사람들이 이리하든 저리하든 초개같이 생각하고 살아왔다. 이제 시대 말씀으로 인구름을 모아 놓고 사니, 얼마나 보람차냐.

88. 전심으로 행해야만 더 깨닫고 더 받으며 확신하고, 희망으로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89. 지구 세상 모든 인생 구원한다고 천둥 번개 치는 소리를 하더니만, 죽은 후에 그 영이 <천국의 어느 위치>에 갔는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다. <흑암 세계>에 가서 보니, 그 영이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를 갈면서 기약 없이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90.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자를 '구원자'로 믿고 사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죽은 후에 그 영이 어디로 가겠느냐. 자기가 구원자로 믿었던 자와 '같은 이론, 같은 주관, 같은 생각'으로 살았으니, 그 영도 '같은 형제'를 이루어 '같은 세상'에 가게 된다. 절대적이다.

91. 만물의 이치나, 육계의 이치나, 영계의 이치나, 모두 <순리>와 <천법>으로 돌아간다.

92. 막연히 ‘나는 천국에 가겠지? 설마 나는 지옥에 안 가겠지?’ 생각한다고, <이미 자기 육의 행위대로 형성된 영>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가겠느냐.

93. 완벽하게 제대로 믿으면서, 영계에서 자기 영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육신의 삶을 살아야, <육>이 죽은 후에도 <영>이 원하는 영의 세계에 간다.

94.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가 살기 좋다고 말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저 나라에 가면 내게도 좋은 집이 있겠지?’ 생각하고, 무작정 그들을 따라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 보니, “나는 본국에 있던 것을 다 팔아서 그 나라에 집과 땅을 사 놓고 살러 가요.” 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좋다고 막 가는 곳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다 해 놓고 가네?’ 하며 안색이 변했다. 도착하여 공항에 내리니 사람들은 자기 위치로 가서 다 사라졌다. 홀로 남아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니, “몰라요.” 했다. 택시 기사가 “나도 모르겠네요. 내려요.” 하여 캄캄한 곳에서 내렸다. 절벽을 지나 가시덤불로 기어 들어갔다. 잠을 자고 해가 떠서 눈을 뜨니 ‘아오지 탄광’ 같은 곳이었다. 그때부터 거기서 살아가야 된다. 육의 세상에서 막연히 믿다가 육이 죽어서 영이 가는 세상이 그러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모르고 이단을 좇던 자들의 영이 가는 세상이 그러하다.

95. 삼위일체가 도와주신 것을 알려면, 더욱 감사하고 사랑하여라.

9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행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눈치로 알고, <몸>으로 행하면서 느껴 알아라.

97.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알고 사는 자만 안다.

98. 삼위일체를 모시고 <생각>에서 잊지 않고 살아 봐라. 하루 종일 얼마나 잊지 않고 사는가, 얼마나 잊고 사는가, ‘평소 신앙’을 저울에 달아 보아라.

99. 삼위일체를 <생각>에서 잊지 않고 살 때는 ‘말씀’이 와서 받게 되고, 잊고 살 때는 ‘말씀’이 와도 못 받는다.

100. 성령님의 손목을 붙잡고 살아도 <생각>에서 잊으면, 잊어버린다.

101. <눈을 뜬 자>는 보고 알듯이, <생각하는 자>는 ‘생각의 눈’을 떠서 느껴 보고 아는 것이다.

102. 이것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은 “하루 종일 네 옆에 있겠다.” 하셨다.

103. <눈>으로 못 봐도 <생각>으로 보아라. 생각하면 ‘생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하면, 신같이 섬겨 주는 것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아, 삼위를 섬겨 드려라.

3. 사랑하면, 섬겨 주는 것이다.

4. 이 잠언은 <읽기만 하는 자>는 ‘방향’만 안다. <행하는 자>만이 이 잠언을 받은 자와 같이 그 ‘의미’를 알게 된다.

5. <행하는 자>만 그 센터의 것을 한 가지, 혹은 열 가지, 혹은 백 가지를 느끼고 깨닫고 얻는다. <잠언>은 한마디 문자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행해라. 행해야 그만큼 얻는다.

6. <잠언>으로 ‘사랑하고 살면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많이 얻는다.’ 하고 표현했다. 이대로 행하며 사는 자는 사랑할 때마다 수백 가지의 기쁨과 희망과 인생의 보람을 얻고 누린다.
7. <글>은 ‘하나의 표시판’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고 <행하는 자>는 그 글대로, 그 말대로 얻는다.
8. 등산로나 관광지에는 ‘표시판’이 있다. 가령 표시판에 “이곳으로 가면 해변입니다. 바다입니다. 이곳으로 가면 기암 절벽이 보입니다.” 했다 하자. 이것은 <글>로 표현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글>만으로는 ‘해변, 바다, 기암절벽’을 볼 수 없다. 그 표시판을 따라서 가야 ‘해변, 바다, 기암절벽’을 보고 누린다.
9. <잠언>으로 ‘천국 황금성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고 써 냈다. <글>만으로는 ‘황금성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알 수 없다. 실제로 가 봐야 겪고 느낀다. <천국 황금성>은 10년, 100년, 1000년 동안 봐도 끝이 없는 세계다.
10. <잠언>을 읽기만 하는 자는 ‘안내 표시판만 보는 자’와 같다. 읽고 행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상하고 생각해 보아라.
11. <성경 말씀>은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 표시판’에 불과하다. 읽기만 하는 자는 표시판만 보는 자와 같다. 행해야 얻는다.
12. 사랑하면 우러러보고, 귀히 보고, 섬겨 준다.
13. <사랑>이 ‘최고’다. 고로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랑하는 것은 좋아하고, 귀히 보고, 중히 보고, 투자하고, 섬긴다.
14. 우상이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니, 섬기고 위해 주는 것이다.
15. 자기가 <우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니, 나무라도 쇠라도 돌이라도 ‘신상’같이 섬긴다.
16. 사람이 아니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섬겨 주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 돌, 나무, 물, 산 같은 자연, 각종 동물과 식물들, 집, 자기가 만든 작품’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위해 준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사랑하면 섬기고 위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섬기지도, 위하지도 못한다.
18.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사랑의 절대자’이시다. 고로 삼위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절대적 사랑’을 모른다.

<2015년 9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다.
2.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3. 사람은 보면 보는 것을 생각하고, 들으면 듣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고로 <옳은 것,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하기’다.
4. <더 좋은 것>을 본 자는 ‘그보다 못한 것’이 보여도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말>을 들은 자는 ‘그보다 못한 것’을 들으면 오히려 싫은 반응을 보인다. <더 좋은 것>을 먼저 보여 주고 말해 주어라.
5. 성령님과 성자는 <보다 못한 것>을 보고 듣고 잘못 인식한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 주고 말해 주며 따라오게 하신다.

6. <과거 구(舊)역사>는 보다 못한 역사이며, 보다 차원 낮은 역사다. <새 역사>는 더 차원 높고 좋은 것을 보여 주고 말해 주며 따라오게 한다. 고로 전체를 다 보여 주고 말해 주어라.
7. <더 좋은 것>을 제대로 보고 들은 자는 ‘그보다 못한 것’을 보고 들어도 따라가지 않는다.
8. 가령 집을 사려 할 때, <좋은 집>을 보면 ‘그보다 못한 집’을 선택하지 않는다.
9. <좋은 것>은 갈수록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안 좋은 것>은 갈수록 더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갈수록 세월 따라 인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10. 처음에는 <구역사>와 <새 역사>의 차이점을 잘 모른다. 이미 성장한 구역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며, 새 역사는 아직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새 역사의 때>가 와서 발전하고 빛을 발하고 성장하니, 새 역사는 좋아진다. <구역사>는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인생이 늙어 가듯 하고, 옷이 해지듯 하게 된다.
11.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가다가 해가 지고 어둔 밤이 된다.
12. 하나님은 <태양>을 ‘한 개’만 가지고 지구를 운행하신다. 고로 <낮>은 ‘하루에 한쪽’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구역사>를 차원 높게 새롭게 펴 나가시는데, <새 역사>는 하나뿐이다. 고로 <새 역사의 때>가 오면, <구역사>는 빛을 잃게 된다. 고로 <새 역사>는 ‘낮’이고, <구역사>는 ‘밤’이 될 수밖에 없다.
13. <부모>는 컸어도 ‘구 역사’이고, <자녀>는 어려도 ‘새 역사’다. 고로 낮이었던 부모는 점점 밤이 되고, 밤 같던 자녀는 점점 낮이 되어 간다. <하나님의 구역역사>도 그러하다.
14. <구역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벽’이었다. 그러다 커서 ‘아침’이 되고 ‘낮’이 되었다. 그러다 더 크니 ‘밤’이 되었다. 인생이 늙는 것과 똑같다. <새 역사>는 처음에는 ‘아기’ 같고 ‘밤’ 같았다. 그러다 점점 커서 곧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낮’이 되어 시대를 비추게 되었고,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 시대를 잡고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게 되었다.
15. <새 역사>는 처음에는 크지 않아서, 시작됐어도 눈에 안 띈다. 그러다 점점 <구역사의 해>가 지면 <새 역사>는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된다.
16. 가정에서 보면 <부모의 해>는 서산으로 가고, <자녀의 해>가 떠서 비추게 된다. 그러다 <자녀>가 크면 결혼하여 그 가정의 자녀로서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신랑-신부>가 되어 새 가정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17. 지금은 <부모 같은 구역역사>는 가고, <자녀 같은 신약역사>도 끝이 나서 그 해가 지고 있고, <신부 같은 성약역사의 해>가 떠올라 벌써 ‘낮’이 되어 진행되고 있는 시대다.

<2015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아무리 사랑해 주고 구원해 줘도, <구원받는 자>가 원하고 바라고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행해야만 구원도 휴거도 이룬다.
2.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같이 살 수 없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서는 같이 살 수 없다.
3. <사랑>도 ‘남녀 한쪽 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듯이, <구원과 휴거>도 ‘하늘 한쪽 편’, 혹은 ‘땅의 인간 한쪽 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믿기 싫다.’ 함은 ‘구원받기 싫다.’ 함이다.
5.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정이지만, 믿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다.
6. 사랑하다가 안 하면 <사랑>이 깨지듯, 구원받고 휴거된 후에 삼위일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날부터 판국이 달라진다. 이러한 삶이 지속되면 <구원>도 <휴거>도 깨진다.
7. <뜨겁게 데운 물>을 계속 뜨겁게 하지 않으면, 식어서 <찬물>이 된다. <구원받은 자, 휴거된 자>도 그러하다. ‘구원의 삶, 휴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찬물이 되듯 한다.
8. 사랑이 식으면 ‘사랑하기 전의 본래 원위치’로 돌아간다.
9. 전깃불도 켜져 있을 때는 잘 밝히다가, 전기가 끊어져 불이 꺼지면 어두운 밤이 된다. <휴거>도 <구원>도 자기가 ‘그 삶’을 살면서 존재시킬 때까지만 존재한다.
10. 짧은 날 모든 시간은 자기 좋은 대로 쓰고, 인생이 다 늙어서 그제야 <구원과 휴거>를 이루려 하느냐.
11.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사랑하다가 등 돌리고, 실컷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느냐. 삼위일체도 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마치 같이 살다가 등 돌리고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온 자 대하듯 대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원할 때 미련도 후회도 없이 해라.
12. 사랑도 구원도 휴거도 ‘생활’이며 ‘삶’이다.
13. 매일 사랑의 삶, 구원의 삶, 휴거의 삶을 살아야 사랑도 구원도 휴거도 상실하지 않는다.
14. 나무가 살아서 존재하려면 ‘뿌리’가 살아서 매일 작용하며 수분과 각종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같이 사는 휴거의 삶도 그러하다.
15. <휴거된 영>도 매일 음식을 먹듯이 매일 희망으로 행한다.
16. <자기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느냐,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느냐, 둘 중의 하나다.
17. <건물 설계>는 ‘설계’에 불과하다. ‘집’이 아니다. 설계한 대로 행하면서 집을 지어야 ‘실체 집’이 만들어진다. <신앙>도 <휴거>도 그러하다. 실제로 행한 것만 ‘실체’가 되어 얻게 된다.
18. 똑같이 개발하지 않아서 잡목과 잡초가 절은 두 지역이 있었다. 한 지역은 개발하여 별장 세계가 되었고 도시가 되었다. 다른 한 지역은 그대로 두어 잡목과 잡초가 여전한 밀림 세계였다.
19. 행하면 ‘실체’가 되어 쓰고, 행하지 않으면 ‘실체’가 없으니 쓰지 못한다.
20. 지옥의 고통은 하루만 받아도 이 세상에서 육이 살 때 평생 받은 고통보다 더 크고 많다.
21. 지옥에서 1분만 고통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22. 그렇게 <지옥>에 대해 말해 줘도 안 믿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있다. 왜? 갈 때 고통으로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옥 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즐거움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간다. 그래서 모르고 매일 그 길로 간다.
23. 자기의 불의한 행위로 인해 <지옥 쪽>으로 넘어가면,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온다. 그리고 ‘가상’이 아닌

‘실제’로 그 지역에서 고통을 받는다.

24. 하나님을 떠나면, 사울같이 악신이 그 욕을 쓰고 괴롭힌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사탄을 이길 힘이 없다. 고로 연속해서 고통이 온다.

25. <구원의 가치, 휴거의 가치>를 모르면 뺏긴다.

26. 매일 구원의 삶, 휴거의 삶을 살면서 삼위일체와 구원자와 같이 행해야 <구원과 휴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연속해서 그 삶을 삶으로 인해 <구원과 휴거>를 뺏기지 않는다.

<2015년 9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27.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매일 쉬지 않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된다. 사랑은 삶이다. 생활이다.

28. 휴거됐으면 ‘휴거의 가치’를 상실하지 말고, 매일 ‘휴거의 삶’을 살면서 ‘휴거의 생활’을 해야 된다. 휴거는 삶이다. 생활이다.

29. 휴거되고도 <욕>이 이성 타락을 하면, <휴거된 영>은 슬피 울면서 ‘자기 욕’을 관리하러 천국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30. <욕>과 <영>은 ‘공동체’로서 ‘같은 운명’이다.

31. 사랑으로 휴거됐다. 그런데 휴거된 후에 <욕>이 이성 죄를 지으면, 마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 타락을 한 것과 같아서 <휴거된 영>에게 치명적이다. <휴거된 영>은 ‘천국 황금성에서 삼위일체와 같이 사는 영’이다. 욕신 세계와는 다르다.

32. <휴거된 영>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천국 황금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욕>이 ‘휴거의 가치’를 모르고 망각하여 이성의 범주를 한다. ‘욕의 행위의 대가’로 <휴거된 영>은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

33. 결혼 파티장에서 모두 드레스를 입었는데 자기만 안 입었으면 나와야 된다. <욕의 행실>이 ‘영의 옷’이다. 고로 <욕>이 타락하면 <휴거된 영>은 드레스를 벗고 일반 옷을 입게 된다. 고로 ‘천국 황금성 혼인 잔치’에서 나와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

34. 왕비가 백성과 이성 죄를 저질렀으면, 왕비의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휴거된 영>도 그러하다.

35.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왕비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새로운 자, 에스더’가 그 위치로 갔다.

36. 이성 타락을 하면 ‘영의 위치’가 바뀐다.

37. 삼위일체는 깨끗하시다. 고로 ‘깨끗한 자’와 같이 사시고, ‘깨끗한 자’를 쓰신다.

38. <깨진 그릇>은 왕의 밥상에 오를 수 없다. <사랑 그릇>이 깨지면, 위치가 바뀌어서 깨진 대로 쓰인다.

39. <깨끗한 자>는 깨끗한 데 쓰여지고, <완전한 자>는 완전한 데 쓰여진다.

40. <썩은 것>은 썩은 데로 간다. <욕>이 생시에 더러운 행위를 하면, <혼>도 혼의 세계인 꿈에서 더러운 행위를 하면서 다닌다.

41. 휴거됐다 하나, 거의 ‘본인의 의와 행실’로 된 것이 아니다. 성자와 성령과 구원자가 대신 조건을 세워 줬기에 휴거되지 못할 자들도 휴거된 것이다. 이제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 받은 것도 뺏기는 것이다.
42. <휴거>도 서서히 되고, <휴거 상실>도 서서히 된다.
43. 이성 타락을 하지 않아도 매일 ‘휴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육적인 삶’으로 기울어져서 결국 <휴거>를 상실하게 된다.
44. 매일 ‘휴거의 삶’이다.
45. <차원을 높이지 않은 현재 위치>는 ‘죽음을 피하는 정도의 위치’다. <육>이 표가 나게 행해야 <영>이 표가 나게 변화된다.
46. <영>이 휴거됐으나 <육>이 휴거의 가치를 모르고 휴거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영>이 휴거를 상실하여 땅으로 내려왔거나, <육>이 이성 타락을 하여 <영>이 땅으로 내려왔다면, 사생결단을 하고 행하여 서에서 동으로 가도록 조건을 세우기다!!
47. <생명책>은 ‘두 곳’에 있다. <영의 생명책>은 ‘천국’에 있고, <육의 생명책>은 ‘땅’에 있다.
48. <땅의 육의 생명책>은 ‘성자의 육, 구원자’가 기록한다. <육의 생명책>에서 제명되면 정말 희망이 없다.
49. <자기 육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 영의 것에 관심 없이 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 그러다가 아예 사라진다.
50. 육신이 살아 있는 한은, <육의 행위>에 따라서 ‘영’도 ‘혼’도 그 영향을 다 받는다.
51. <휴거>는 망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다. 실제다. 휴거되어 가는 <천국>은 지구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 <지구>는 가다가 없어져도 <천국>은 영원한 세계로서 영원히 완벽하게 존재한다.
52. 삼위일체는 ‘인간의 영’을 보고 결정하신다.
53. 과수원지기가 열매를 따 놓고 ‘열매의 상태’를 보고 값도 정하고, 버릴 것인지 먹을 것인지도 정한다. ‘나무’를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열매>는 ‘영’이고, <나무>는 ‘육’이다. ‘열매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듯, 삼위일체는 ‘영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신다.
54. <과일나무>만 보고서는 ‘따 간 열매의 상태’를 모르듯이, <육신>만 보고서는 ‘영의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어떤 사람은 <육>은 멀쩡한데 <영>은 썩은 과일 같기도 하고 흉측하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육>은 보잘것없는데 <영>은 빛이 나고 권세 있다.
55. 자기 ‘혼’도 보고 ‘영’도 보아라. 상태를 알아야 된다.
56.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혼과 영의 상태’가 결정되니, <자기 육신의 행위>를 보고 분별하여라. 자기 행위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다.
57. 그리고 자기 혼과 대화하고, 자기 영과 대화하면서 ‘자기 혼과 영의 상태’를 확인해라.
58. 자기 영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고, 주와 대화해라.

59. <휴거된 자>는 ‘개발한 월명동’과 같고, <휴거되지 못한 자>는 ‘개발 전 월명동’과 같다.
60. 월명동도 개발하니 귀히 쓰이듯, 휴거돼야 귀히 쓰인다.
61. <휴거되지 못한 영>은 ‘지구촌 73억 명 중의 한 사람만큼의 가치’가 있고, <휴거된 영>은 ‘지구촌 73억 명 전체만큼의 가치’가 있다.
62.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면서 시간 뺏기지 말고, ‘새로운 자’를 찾아라.
63. <처음 것>이 깨지니 그 공적 위에 <더 새로운 것>을 주셨다.
64.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어도 사울은 자기 뜻대로 했다. 사울이 못 하니, 하나님은 ‘이미 새롭게 택하여 성장한 다윗’을 쓰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택하셨으나, 그때는 아직 어려서 못 쓴 것이다. 다윗이 크니, 하나님은 즉시 쓰셨다.
65. 어떤 자는 ‘과정 중’에만 쓰여지고 만다. 왜 그렇게 됐겠느냐. <자기 행위>로 그리된 것이다.
66.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도 그가 못 하면 ‘후자’를 택해서 쓰셨다. <전자>를 택했을 때 <후자>는 안 택했겠느냐. 아니다. <후자>도 이미 택하셨다. 그러나 그때는 <후자>가 크고 있으니 못 쓰신 것이다.
67. <전자>가 잘하면, 전자 - 후자 둘 다 귀히 쓰신다.
68. <전자>가 못 하면, 전자가 못 한 것을 ‘후자’가 하게 하신다.
69. 세상에는 귀한 물건도 많지 않고, 미인도 많지 않고, 좋은 지역도 많지 않고, 휴거된 자도 많지 않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된 자도 많지 않다.
70.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멸망받고 지옥에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71.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구원>, 아니면 <멸망>이다.
72. <확실한 휴거>를 이루려면, 확실하게 믿고 행해라. 전심으로 행해라. 절대 삼위일체 사랑, 절대 실천이다. 마치 집을 짓는 자가 집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짓듯이 행하기다.
73. 힘들어도 <생명길>로 가지 않는 자는 <사망길>로 가게 된다.
74. <사망길>로 가는 것이 제일 쉽다. 왜? 세상에서 즐기면서 편하게 가기 때문이다.
75. <남이 해 주는 관리>만으로는 휴거도 구원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천국에 받으시겠느냐. 그런 피동적인 자를 데려다 천국에서 살게 하시겠느냐. <자기가 확실히 믿고 바라고 원하고 행한 자>가 구원도 휴거도 이룬다.
76. 나무를 보아라. 나무도 뿌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성장하고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인생도 스스로 행해야 크다.
77. 아름다운 나무가 죽었다 하자. 그것이 살아나기를 기다리기만 하겠느냐. 죽은 나무를 쳐다보고만 있겠느냐. 즉시 베어 내고 ‘더 좋은 나무’를 심어 기뻐하며, 과거의 아픔을 잊고 살아간다.

78. 죽은 시체가 아깝다고 울면서 보고만 있겠느냐. 빨리 땅에 묻어 장사 지내야 된다. ‘신앙이 아예 죽은 자’도 그러하다.

79. 숨만 쉬면 기능을 못 해도 땅에 묻지는 않는다. ‘신앙의 생명’도 그러하다.

80. <육>이 한 번 죽으면 못 살듯이, <영>도 아예 사망으로 죽어 버리면 못 산다. ‘영이 아예 죽은 자’는 미련을 버리고 버려야 된다.

81. <육>이 죽지 않게 하여라. <영>이 죽지 않게 하여라.

82. 스스로 믿어라. 스스로 행해라. 그리고 스스로 믿고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배워라. 그리고 배운 대로 행해라. 그리고 삼위일체를 사랑해라. 그래야 능히 ‘자기 영’을 휴거시킨다.

83. 말씀을 줘도 자체적으로 말씀을 흡수해야 산다.

84. 자체적으로 할 때, 자기 것이니 잘해진다.

<2015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전도용, 강의용 잠언이다. 설교용으로 좋은 잠언이다. 이 잠언을 기본으로 ‘생명’과 연결시키기다. 잠언 하나만 있으면, 설교를 만든다. 잠언 하나만 있으면, 방법을 안다. 답을 안다.

1.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천국>은 완전히 ‘사랑의 세계’로 빛이 나게 되었다.

2. <땅>을 사 놓고, 그때부터 <그 땅의 나무>를 가꾸면 늦다.

3. <남의 땅>이라도 사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때부터 <그 땅의 나무>를 가꿔 주어라. 그렇게 10년 동안 <남의 땅의 나무>를 가꿔 주면, 10년 후에 <그 땅>을 사도 10년 전에 미리 산 것같이 ‘가꾼 나무’가 되어 더욱 귀히 쓴다.

4. <하나님이 뜻하신 땅>이라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남들이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을 쓰게 놔두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월명동을 개발하여 뜻있게 쓰듯, 그제야 행하시며 드러내신다.

5. <땅>은 ‘하늘의 것’이라서 때가 되면 순간 산다. 그러나 <그 땅의 나무>는 땅을 산 후부터 가꾸려면 늦어서 불가능하다. <나무>는 순간 못 키운다. 10년, 20년 전부터 키우기다.

6. <월명동 감람산 주위의 소나무들>은 선생이 감동을 받고 50년 전부터 가꿨다.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그 땅을 사게 됐다. 만일 <그 땅>을 사고 나서 <그곳의 소나무들>을 가꿨으면, 이제부터 가꾸니 ‘당세’에는 나무가 빛을 못 보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미리 가꾸고 후에 전도해라.

7. <땅>은 순간 사지만, <그 땅의 나무>는 순간 가꾸어 키울 수 없다. 이와 같이 <생명>도 미리 가꾸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리하신다.

8. <땅>은 하루 만에도 살 수 있지만, <나무>는 하루 만에 거목으로 키울 수 없다. 고로 <아직 남의 땅의 나무>라도 미리 키우기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생명>을 데리고 오실 때도 미리 기르시고, 때가 되면 하루 만에 삼위의 품으로 데리고 오신다.

9. <남의 땅의 나무>라도 가꾸고 키워라. <생명>도 그렇게 하여라. 기성에서, 세상에서 키우다가 ‘때’가 되면 오게 하여라.

10. <개발 안 한 땅>은 주인이 있긴 해도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개발 안 된 채 그냥 그대로 있다. 팔고 사서 소유권

이 바뀌기는 한다.

11. <땅>을 ‘개발’하여 쓰려면 사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으려면 사지 말고 그냥 가꿔 주면서 쓰는 것이 더 실속 있다.
12. <월명동 감람산 주위>도 남의 땅이었지만 계속 가꿔 주면서 실컷 썼다. 그러다가 ‘개발’하려니 사게 됐다.
13. 앞으로 수백 년, 천 년이 가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쓸 땅들과 산들이 대부분이다. ‘개발’하지 않을 것이면 살 것 없다. 개발하지 않고 그냥 쓰면 된다.
14. <섭리사로 데려올 생명>이라면, 미리 가꾸고 키워라. 기성에서 세상에서 키우다가 ‘때’가 되면 오게 하거다.

<2015년 9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말>과 <사진>은 같다. 말하기 달렸듯이, 사진도 찍기에 달려 있다.
2.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진을 찍기에 따라서 돋보인다.
3. <말>도 인간을 많이 속이고, <사진>도 인간을 많이 속인다.
4. <사진>으로 보니, 100톤 정도의 큰 바위로 보였다. <실제>로 보니 주먹만 한 돌이었다. 작은 돌을 바짝 당겨서 찍으니 그리 크게 보인 것이다.
5. <말>도 그러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해서 <실제>를 확인하니 거짓이었다. 소리만 요란한 공포탄처럼 소리만 뽕뽕대는 거짓이었다. - 사탄은 사람을 쓰고서 이런 짓을 잘한다.
6. <사진>에서 보니 폭포수로 보였다. <실제>는 소가 오줌 싸는 모습을 찍은 것이었다. <말>도 이와 같다. <말>로 들을 때는 엄청난데, 직접 가 보니 그것의 천 분의 일도 안 되는 것이었다. 말하는 대로, 사진 찍는 대로다.
7. 이단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한다. 그 말을 듣고 영계에 가서 실제로 보면, 그 영이 쓰러져 가는 토담집에 살고 있다.
8. <사진>으로 볼 때는 기암절벽으로 보여서 가 보니, 작은 수석이였다.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 <말>도 그러하니, 꼭 확인해라.
9. <사진>으로 보니 엄청난 경관이였다. <실체>를 확인하니, 사진에서 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처량한 모습이였다. <말>도 그러하다. 그러니 꼭 확인해라.
10. <사진>으로 보니 정말 큰 산이였다. <실체>를 확인하니, 장난감 조형물이였다. 이와 같이 <말>로는 엄청난데 <실체>는 그렇지 않다.
11. <사진>으로 보니 정말 엄청난 차였다. <실체>를 확인하니, 장난감 차였다. ‘거짓되고 망령된 자의 말’도 그러하다.
12. TV와 영화를 통해 영상으로 본 사람을 직접 만나 봤다. 영상으로 볼 때는 놀랄 정도로 멋있었다. <실제 모습>을 직접 보니 실망이였다. 기대가 크니 실망이 너무 컸다. 화면도 사진도 믿지 말고, 실체를 확인하고 나서 입을 벌리며 놀라도록 해라.
13. <사진>이나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돋보이게 하며 10배, 100배, 1000배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14. <사진>으로 보니 1000년 동안 큰 나무 같았는데, <실제 모습>을 확인해 보니 어린 나무였다.

15. <사진>은 당겨서 찍으면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멀리서 찍으면 1000년 된 나무도 손가락처럼 작게 보인다. <사진>은 찍기에 달려 있다.
16. <말>도 하기에 따라서 별것 아닌 것도 엄청나게 들리고, 엄청난 것도 별것 아니게 들린다. <말>도 하기에 달려 있다.
17. 확인하니 편하다.
18. 확인하면, 미리 아니 편하다.
19. 욕하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귀를 막아라.
20. 말로 괴롭히는 자 때문에 심정 상하지 말고, 귀를 막아라.
21. 듣기 싫은 음악 소리가 방송으로 계속 흘러나왔다. 지옥의 소리 같아서 계속 듣고 있기가 괴로웠다. 그러나 내가 끌 수도 없었다. 귀를 막으니,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
22. 험한 꼴 보고서 충격 받지 않으려면, 눈을 감아라.
23. 더러운 냄새를 맡고 토하지 않으려면, 코를 막고 지나가라.

<2015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사랑> 보고 택하고 뽑으신다.
2.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보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을 뽑으신다.
3. 하나님은 ‘앞으로 행할 자’를 뽑기보다 ‘지금 행하고 있는 자’를 뽑아 쓰시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오게 하시고, 그런 자들을 휴거시켜 천국 황금성에 오게 하신다.
4.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세상 지식이나, 인물이나, 키나, 권세나, 재물을 보고 뽑으신다면 못 배운 자나, 못 생긴 자나, 키가 작은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없이 태어난 자들은 억울해하며 공평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5. 고로 하나님은 누구나 억울하지 않게 공의롭게 ‘사랑 한 가지’를 보고 택하신다. - 세상 지식이 없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키가 작은 자나, 얼굴이 예쁘지 않은 자나, 혹은 잘생긴 자나, 잘 배운 자나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고 잘 대해 주는 것’을 보고 뽑으신다.
6. <사랑의 자료와 자본>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 사랑할수록 마음과 생각에서 사랑이 무한하게 나온다.
7.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처럼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핑계 대지 못한다.
8. 하나님이 왜 ‘사랑’ 보고 뽑으시겠느냐. 곧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의 세계’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을 목적으로 뽑으신다.
9. 세상은 인물과 지식 등 ‘각종 육적인 것’을 보고 뽑는데, 하나님은 ‘사랑’을 핵으로 보고 뽑아서 쓰신다.

10. ‘왜 저 사람을 저리 크게 쓰시나?’ 하며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뽑으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11. 하나님이 사랑을 보고 예정하셨어도, 본인이 예정대로 행해야 ‘뽑힌 자’가 되고 ‘목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

12. 구원자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도 삼위일체는 ‘사랑’을 보고 뽑으셨다.

13.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의 뜻을 이루고 복직하여,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신부 역사 시대>다. <휴거 역사 시대>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뽑으시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만큼 변화되게 하시고 휴거의 영이 되게 하여, 영도 육도 휴거의 삶을 살게 하신다.

14. 이 시대는 100% ‘사랑’을 목적하고 뽑으신다. 고로 100% 삼위일체 사랑, 주 사랑, 형제 사랑이다.

15. <사랑> 보고 뽑았는데 사랑을 깨뜨리면, ‘사랑’도 깨지고 ‘다른 것들’도 깨진다.

16. <사랑>을 안 깨뜨리고 잘하면, 다른 모든 것들도 축복을 주어 잘된다.

17. <사랑> 보고 택했는데, ‘사랑의 맛’이 가면 ‘음식의 맛’이 간 것같이 다른 모든 것들도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

18. <삼위와 주를 향한 사랑의 맛>이 가면 신부 차원에서 떨어져서 ‘형제급 차원’에서 살게 되고, 결국 ‘신부 자격’을 상실하여 보람도 기쁨도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

19. <발>이 보잘것없어도 ‘발에 묻힌 보화’를 보고 그 발을 사듯이,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 땅>을 사신다.

20. 발에 ‘보화’가 묻혀 있지 않으면, 그 발은 가치가 없어서 되팔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한 사랑의 보화’가 없는 자는 가치가 없어서 삼위는 그에게 등을 돌리신다. 왜? ‘삼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창조 목적의 뜻>을 펴지 못하기 때문이다.

21. 변함없는 사랑, 거짓되지 않은 사랑, 진실한 사랑, 영적인 사랑, 육신도 그와 일체 된 사랑, 배신하지 않는 사랑, 어떤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는 사랑, 첫사랑과 같은 뜨거운 사랑 삼위일체는 이런 사랑을 하는 자를 뽑아 <시대 휴거>를 이루게 하시고,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1.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뽑으신다. 곧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것 한 가지’를 보고 뽑으신다. 고로 삼위일체를 사랑하면, 누구다 다 뽑힌다.

2. 세상은 순위를 매겨서 1, 2, 3등만 뽑고 나머지는 안 뽑지만, 하나님은 1, 2, 3등뿐 아니라 ‘행하여 조건을 세운 자들’을 다 뽑으신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무리를 모은다.” 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14만 4천 무리만 뽑는다고 하는 말은 이단의 논리다.

3. 이단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풀면, 자신들의 이론과 논리가 다 틀리기 때문이다.

4. 성삼위를 진정 사랑하면, 인원수 제한 없이 다 뽑으신다.

5. <육신의 모양과 형상>이 자기가 관리를 못 해서 못났든지, 타고나기를 못나게 태어났든지, 코끼리나 돼지가 “너는 꼭 나를 닮았다. 나와 모습도 체구도 비슷하니 나와 놀자. 사람이지만 정말 희귀하게 생겼다.” 해도 성삼위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팔다리와 허리를 잡아당기시며 “너 멋있다. 예쁘다.” 하고 대환영하며 뽐으신다.

6.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웃기게 생겼어도, 놀랄 정도로 못생겼어도, 살이 찌고 체구가 코끼리 같아도, 비쩍 말라서 불쌍하게 생겼어도, 어떻게 생겼든지 성삼위를 진실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뻐하시고 대환영하며 뽐으신다.

7. 사람들은 ‘자기 모순’을 보고는 안 놀라면서, ‘상대의 생김새’를 보고서는 놀란다. 그것이 모순이다.

8. 삼위일체는 <인간의 욕>과도 같이 살지만, 결국은 <변화된 영>과 같이 사신다. 고로 ‘욕’은 핵으로 안 보고 ‘영’을 중심하신다. <욕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영>이 상상도 못 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고 가지 있게 되니, 하나님은 ‘영’을 중심하시고 ‘삼위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뽐으신다.

9. <욕>이 아무리 멋있고 예뻐도 <욕>은 매일 늙어 간다. 아기 때 예뻐도 조금만 크면 그 모습이 싹 없어지고, 10대 때 예뻐도 20대가 되면 그 모습이 싹 없어지고, 30대를 맞아 ‘청춘의 황혼’이 온다. 그러다 인생이 점점 늙어 가면서 ‘인생의 황혼’이 찾아온다.

10. 하나님은 ‘인물·키·학벌·재물’ 등 세상적인 것들을 안 보시고 ‘사랑’을 보고 택하여 쓰시는데, 이는 <시대 표상자>를 보면 입증된다. 그러니 <시대 표상자>를 보고 확신해라.

11. <시대 구원자>도 세상적으로 따지면 100가지를 따져 봐도 타인보다 뛰어나게 최고다 하는 것이 없었다. “오직 삼위일체만 극적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바로 깨닫고, 삼위일체의 심정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행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들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면서 세상적인 것들도 하나하나 갖춰 가게 하셨다.

12.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목적, 대망의 창조 목적>인 ‘휴거’를 ‘사랑’으로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보고 택하고 뽐으신다.

1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지키면서 잘했다. 그러다가 사탄의 꾀를 받고 타락하여 ‘사랑’을 뺏겼다. 최고 핵인 ‘사랑’이 깨지니, ‘다른 것들’도 다 깨져 버렸다.

14. 하나님께 택함 받았어도 자기가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15. <사랑>이 최고의 목적인데 핵인 ‘사랑’이 깨졌으니, ‘다른 작은 목적들’도 다 깨진 것이다.

16. 처음에 잘해도 끝까지 잘해야 된다. 중간에 변질되면 안 된다.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어느 상황에서도 등 돌리지 않는 사랑, 첫사랑과 같은 불타는 사랑이다.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1. <욕의 사랑>은 사랑할 때만 느낀다. 사랑하고 나도 기억도 안 난다. 다시 사랑해야 기억이 난다. 사랑의 행위는 극적일 때만 느낀다. 고로 돌아서면 뇌는 기억도 못 하게 된다.

2. <영의 사랑>은 생각만 해도 느낀다. <영의 생각>은 ‘신’과 같아서 차원이 높다. 고로 사랑한 것, 사랑을 받은 것을 절대 영원히 잊지 않고 매일 극적으로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산다.

3. <욕의 사랑>은 욕신이 늙으면서 서서히 끝나고, 그나마 욕이 죽으면 <생각>까지도 끝나 버린다.

4.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해라. 이는 삼위일체와의 사랑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다.

5. 매일 <생각>으로 잊지 않고 사랑해라. 그러면 쉬지 않고 계속 사랑을 느끼고, <몸>도 따라가게 된다.
6.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나간 자가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지만, 결국 때가 되면 <세상 사랑의 꽃>은 지고, <인생 겨울, 사랑 겨울>을 맞아 양상한 가지가 되어 인생길 가기에 바쁘다. 그 종착역은 뻘하다. 영원한 사망의 '지옥'이다.
7. 섭리사에서 변함없이 삼위를 사랑하면서 주의 몸이 되어 뛰면서 사는 자는 연속 삼위일체의 사랑이 불타서 화려한 열매를 열고, <영원히 기쁨이 지속되는 길>을 가면서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
8. <육신>은 인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고 부귀영화를 누리도 가다 보면 인생의 해가 진다.
9. <육>만 위해 살면 '육의 세계의 해'는 지고 '영의 세계의 해'가 뜨지 않으니, 결국 그 영은 '영원한 흑암의 세계'를 맞게 된다.
10. <육신>을 가지고 <영>을 위해 살아라. 그래야 '육의 꽃, 육의 열매, 인생의 해'가 저도 '영의 세계의 해'가 찬란하게 떠오른다. 그 세계는 밝고 찬란한 '천국의 세계'다.
11. 세상 명예와 권세가 하늘 높이 치솟아도, 세상 물질을 산같이 쌓아 댔어도 <자기 육>이 살아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억울하고 불쌍한 자다. 결국 '인생의 해'가 지면, 그 영은 '영원한 고통의 길'을 가게 된다.
12.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지구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최고 큰 성공을 한 자이며, 최고의 영광을 얻은 자다. 지구 세상에서 그 성공과 영광을 따라올 자가 없다.
13. <육신>은 키가 작아도 삼위일체를 진실로 사랑하면서 그 뜻대로 살면, <그 영>은 키가 2~3미터까지 커진다. 영의 가장 완벽한 키는 2~3미터 정도다.
14.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휘날리며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면서 살던 자들인데, 그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의 사랑만 받고 살았다. 육신이 100세 가까이 됐는데도 <그 영>은 난쟁이였고 불구였다. 영계에 가 보면 불구의 영들이 너무 많다. 또 얼굴이 어두운 자들이 너무 많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어두움'으로 보인다.

<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잠언은 이어지는 잠언입니다.

1. 하나님은 '삼위를 사랑하는 것'을 저울에 달아서 '사랑 무게'를 보고 뽑고 택하신다.
2. 환난의 비가 오나, 환난의 바람이 부나, 환난의 눈이 오나 '삼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휴거의 변화>가 계속 된다.
3. 인간은 누구나 '사랑 복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안 하면 희망이 없다.
4. 하나님은 '사랑'을 보시니 부정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억울함도 없다. 또한 다른 것으로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5. 축복도, 사명도 '사랑'을 보고 주신다.
6. 성경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삼위'를 섬기고 사랑하며, '너를 구원하러 온 자'를 사랑해라.
7.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사랑'으로 이루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해야 된다.

8. 성삼위와 주 앞에 ‘사랑의 배신’을 하면 <그 영>도 ‘배신자’가 되어 심판받고, 영원히 사랑이 없는 세계로 가서 사랑받지 못하고 천대받으면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9. 사랑해서 하나님께 뽑힌 자라도 성삼위와 주께 등을 돌리고 사랑이 변질되면, 자기가 스스로 사랑을 버렸으니 결국 자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만다.

10. 신부로서 ‘변함없는 사랑’을 해라. 그래야 그 영이 <천국 황금성>에 들어가게 된다.

11. 늘 변함없이 <주의 사랑의 뜻>을 쫓고 살아라. 그래야 ‘사랑’도 변함없다.

12. 예수님도 ‘사랑’ 보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구원자’로서 행하셨다.

13.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성경의 예언’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도 살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면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자>와 ‘의논’도 하시고 ‘결정’도 하신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구원역사’를 펴시고, ‘휴거 역사’도 이루시며, 마지막으로 ‘성약 신부 역사’로 끝을 맺으신다.

16.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 격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찾으신다.

17. 하나님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고 뽑으신다.

18. <체질>이 맞고, <취향>이 맞고, <뜻>이 맞고, <사랑>이 맞아야 택하신다.

19. 같이 살려면 ‘사랑’이 핵이다. ‘사랑’이 깨지면 같이 못 산다.

20.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천국>을 창조해 놓으시고, ‘성삼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고 휴거시켜, 그 영에게 천국에서도 최고로 좋은 <황금성>을 유업으로 주신다.

21. <진수성찬>도 먹는 자가 주인이듯, <시대 생명의 말씀>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인이다.

22. 사랑하면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23. 사랑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인다.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 <뇌와 생각>에 대한 좋은 잠언이다. * 왜 사람은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고, 잘하다가도 안 하는가? - 이에 대해 답을 주는 잠언이다.

1. 잘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자랑도 하고, 모두에게 구경도 시켜 줄 수 있다.

2.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관리>도 잘하고, 모두 다 잘해야 된다.

3. <뇌와 생각>은 ‘낮’과 ‘밤’을 맞이한다.

4. <뇌와 생각>은 ‘낮’을 맞았다가 ‘밤’을 맞이하고, ‘낮과 밤’이 계속 회전하면서 돌아온다.

5. <뇌와 생각>이 ‘낮’을 맞이하면 좋아하고 잘하다가도, <뇌와 생각>이 ‘밤’을 맞이하면 “내가 왜 했지? 싫어!” 하면서 안 한다. 그러다가 <뇌와 생각>이 다시 ‘낮’을 맞이하면 “내가 왜 안 했지? 원래는 좋아했는데 왜 싫어했지? 왜 낙

심했지?” 한다. 이렇게 <뇌와 생각>은 ‘낮’을 맞았다가 ‘밤’을 맞고, ‘밤’을 맞았다가도 또 ‘낮’을 맞이하며 회전한다. 고로 ‘인간은 변화무쌍하다.’ 하는 것이다.

6. 어떻게 하면 ‘변화무쌍한 생각’을 바로잡겠느냐. <옷>을 바닥에 두면 짓밟힌다. <생각>도 그러하다. <옷>을 ‘옷걸이’에 걸어 놓듯이, <뇌와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주’께 걸어 놓고 살아라. 그래야 좋아하다가 싫어하면 왜 좋아해야 되는지 성삼위와 주가 깨닫게 해 주고, 잘하다가 안 하면 왜 잘해야 되는지 성삼위와 주가 깨닫게 해 준다.

7.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자기가 좋아해서 음식을 사 왔다. 그러다 <뇌와 생각>이 ‘밤’을 맞으니 “내가 이걸 왜 사 왔지? 별 필요도 없는데.” 하고 싫어하다가 죽 썬서 개에게 줬다. 그러다가 <뇌와 생각>이 ‘낮’을 맞으니, 급히 찾았다. 알고 보니 자기가 죽 썬서 개에게 준 것을 알고 “내가 왜 미련한 짓을 했지?” 깨달았다. 그때 <뇌와 생각>이 다시 ‘밤’을 맞으니, 개를 미워하여 팔아 버렸다. 그러다 <뇌와 생각>이 다시 ‘낮’을 맞으니, 개를 찾았다. 이미 개는 팔아넘긴 상태였다. 그때 자기 행위를 후회하며 자기를 원망했다. 그러니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아도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기 생각>을 성삼위와 주께 맡기고 같이 살아라.

8. <뇌와 생각>은 ‘낮’을 맞았다가도 ‘밤’을 맞고, ‘밤’을 맞았다가도 ‘낮’을 맞는다. 사람은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각종 죄를 짓고, 각종 실수를 하고, 미련한 행위를 하고, 사고도 친다. 고로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다면 ‘낮’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고 행해라.

9. <뇌와 생각>이 ‘낮’을 맞았다는 것은 기뻐 흥분된 상태다.

10.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다는 것은 기쁨과 흥분이 식고, 마음이 가라앉아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다.

11. <뇌와 생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한다. ‘자기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다. 고로 <생각>이 ‘신’이 돼야 한다.

12.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는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다. 그때는 ‘생각의 차원’이 낮아진다.

13.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

14.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각종 죄를 짓는다.

15.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불평불만 하고 시험에 든다.

16. <뇌와 생각>이 ‘밤’을 맞았을 때,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

17. <뇌와 생각>이 ‘밤’을 맞으면,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 시험에 빠진다.

18. <뇌와 생각>이 항상 ‘낮’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태양 같은 성삼위와 일체’ 되어 살아라. <너의 생각>을 ‘삼위’께 걸어 놓고 살아라.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왜 사람은 좋아하다가도 싫어하고, 잘하다가도 안 하는가? - 이에 대해 답을 주는 잠언, <뇌와 생각에 대한 잠언>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해 주겠습니다.

1. <뇌>는 ‘낮과 밤’을 맞아서 <생각>이 ‘좌우’로 뒤바뀐다.

2. <뇌>는 때에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대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생각>이 뒤바뀐다.

3. <뇌와 생각>은 자기 차원대로 뒤바뀌면서, <생각>을 뒤집기도 하고 엎기도 한다.

4. <뇌>는 ‘흥분되고 좋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흥분이 식었을 때’는 생각이 뒤바뀐다.
5. <뇌>는 ‘열 났을 때의 작동’과 ‘열이 식었을 때의 작동’이 다르다. 고로 <생각>이 뒤바뀐다.
6. <뇌>는 ‘더 이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대로 결정하고 굳어진다. 이에 <생각>도 그렇게 고정된다.
7. <뇌>는 ‘거울’과 같다. <거울>은 보이는 대로 비춰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뇌>도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대로 작동되면서, <생각>도 그렇게 뒤바뀌게 된다.
8. <뇌>는 개발할수록 ‘기능’이 좋아져서 차원 높게 생각하게 된다.
9. <뇌>를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마치 <환경>을 개발하지 않고 쓰는 격 같아서 보통이다. 별로다. 원시적이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작동한다.
10. <뇌>에 확실히 입력되게 하려면, 거듭 반복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생각>이 잊지 않게 된다.
11. <뇌>를 총명하게 만들려면, 신령해야 된다. 신적으로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기도해라.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신적 생각을 받고 살아라.
12. <뇌의 생각>으로 육의 운명, 혼의 운명,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13. <신의 차원의 뇌>로 개발하려면, ‘혼의 세계’를 알고 ‘혼’을 사용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육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생각으로 살게 된다.
14. <혼>은 ‘꿈’에서도 활동하고, ‘생시’에도 활동한다. ‘꿈’에서는 ‘혼 자체’로 활동하고, ‘생시’에는 ‘자기 육과 육의 생각’을 쓰고 활동한다.
15. <혼의 생각>은 ‘육’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서 앞날도 본다.
16. <영의 생각>은 ‘혼’보다 차원이 더 높아서 ‘신의 세계’에서 ‘신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 삼위와 일체 되고 발달된 영이 돼야 한다.
17. <영과 혼의 생각>은 ‘자기 육의 뇌’로 받는다. 고로 <육>이 ‘혼과 영’에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부르고, 기도해야 된다.
18. <뇌>는 ‘육과 혼과 영이 통하게 매개 역할’을 하고, ‘성삼위와 통하게 매개 역할’을 한다.
19. <뇌>로 생각하여 ‘한없는 연구’도 한다.
20. <뇌>는 ‘자기 혼’을 우주에 보내어 ‘혼’이 본 것을 ‘뇌’가 받아서 생각나게 한다.
21. <뇌>는 ‘감지기’와 같다. <생각>은 ‘뇌’에서 발생한다.
22. <생각>이 ‘신’이 되게 하여라.
23. 신의 생각과 일체 된 생각을 하면, <생각>이 ‘신’이 된다.
24. <생각>은 ‘눈’과 같다. <눈>으로 보듯이, <생각>으로 생각하며 보고 판단한다.

25. <생각>은 ‘형상 없는 하나의 사람’과 같다.
26. 집중하고 <눈>으로 봐야 확실히 보고 알듯이, 집중하고 세밀하게 <생각>해야 확실히 알게 된다.
27.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이 알게 된다.
28. <생각>을 계속 깊이 하면서 자꾸 차원을 높이면, 그 센터에서 ‘신적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된다.
29. <글씨>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면 ‘더 좋은 글씨’를 쓰게 되듯이, <생각>도 여러 번 반복하면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30. <육신>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계속 더 올라가면 ‘더 위의 계곡’을 볼 수 있다. <생각>도 깊이 들어갔을 때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면 ‘깊은 깨달음, 깊은 이해’가 생긴다. 거기서 나오면 ‘딴 생각’으로 흘러간다.
31. 생각났을 때 ‘기록’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그러다가 다시 기억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평생 기억나지 않고 잊어버릴 때도 있다.
32. 생각할 때 집중해서 생각하고 나와야 된다. 한 번 나오면, 다시는 그 생각으로 못 들어간다. 간 김에 봐야 된다.
33.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면서 축복을 주신다.
34.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생각나게 하신다.
35. <몸>도 쓰기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되고 끝나듯, <생각>도 쓰기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 끝난다.
36.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육의 세계의 것’만 얻고, ‘육이 존재할 때까지’만 쓰고 끝난다.
37.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영’이 변화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 * 오늘 하루 종일 글을 쓰다 보니, 여기까지 잠언을 쓰니 ‘볼펜 세 자루’를 다 썼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시간’을 착각했다. 나는 ‘아침 9시’라고 생각했는데, 시계를 보니 아직 ‘6시’였다. 그래서 시계를 ‘9시’에 맞춰 놓고, ‘시계 배터리가 없구나.’ 생각했다. 잠시 후 ‘저녁 8시 뉴스’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벌써 저녁이 된 것이었다. 오늘 ‘볼펜 세 자루’를 다 쓰기까지 12시간 동안 빠져서 글만 쓴 것이다. 이제 ‘볼펜 4자루째’다. 잠언을 조금 더 써 내려간다.
38. <뇌와 생각>은 생각하고 인식된 대로 확정한다.
39. <뇌와 생각>은 ‘육신’이 피곤하면 흐릿해진다.
40. <뇌와 생각>은 ‘새벽’에 최고로 맑고 또렷하다.
41. 제일 먼저 <생각>이 시동을 걸고 깊이 생각하다가, <자기 혼>을 쓰고서 ‘천국’에도 간다.
42. <생각>이 ‘인간의 핵’이다.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잡념을 없애고, 생각·혼·영을 사용해라.
2. 만사에 잘되는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잡념도 일순간에 없애는 방법이 있다.

3. <잡념>으로 ‘사탄’이 오고, ‘기도’가 막히고, 자기에게 ‘해’가 온다.
4. <뇌>는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잡념의 시동이 걸려서 뇌에서 각종 잡생각이 작동된다.
5. 잡념, 잡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가 꾸짖어라. 그리함으로 잡념과 잡생각을 정지시키고, 뇌에 자극을 주어라. 그러면 즉시 멈춘다.
6. <생각>을 ‘집중’하면, 잡념이 올 수가 없다.
7. 사람이 어떤 것을 눈으로 보고 행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면, 잡생각이 안 난다.
8.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나 장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를 상상하기도 하고, 가상의 인물도 생각나는 등 <뇌>는 계속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작동된다. - 이것이 모두 잡생각이다.
9. 기도할 때 ‘기도 외의 생각’이 잡생각이다.
10. <뇌>는 가만히 있으면 ‘각종 생각’이 떠오르면서 ‘잡념’에 빠져 허우적댄다.
11.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작동되면서 ‘잡념 세계’에 빠진다.
12. 잡념 때문에 기도가 깊이 안 된다.
13. <잡념 주관권>에 있다는 것은 ‘집중을 안 했다는 근거’다.
14.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생각>을 집중하면, 잡념이 못 온다.
15. <사람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
16. 기도할 때, 하찮은 모기나 날파리 같은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 그때는 말로 책망하지 말고, 순간 잡아라. 하루 종일 모기나 날파리를 책망한다고, 모기나 날파리가 그 말을 듣고 나가겠느냐.
17. 잡념도 그냥 두면, 하루 종일 자기를 따라다니며 신경 쓰이게 한다. 잡아 없애라. 방법은 ‘합당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기’다.
18. 잡념이 오면, 손으로 머리만 톹 쳐도 일순간에 잡념이 사라진다.
19.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신이 되는 능력’을 넣어 창조하셨다. 곧 빛보다 수백조 배 빠른 ‘생각·혼·영’이다.
20. 자기에게 ‘빠른 세단’이 없고 ‘전용기’가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생각·혼·영’을 사용해라. <생각·혼·영>은 총탄보다 빠르다. 세상에 이렇게 빠른 세단이나 비행기가 있느냐. 너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 사용해라.
21. 세단으로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초’만에 갔다 올 수 있느냐. <생각·혼·영>은 한다.
22. 아무리 빠른 차라도, 하늘을 나는 비행기라도, 그것을 타고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느냐.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는 ‘빛’으로 가면 150억 년이 걸린다. <천국>은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세계다. 그러니 <천국>은 ‘빛’으로 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생각·혼·영>은 ‘20분’이면 천국에 간다. 하나님은 <육신>도 합당하게 쓰고, <생각>도 합당하게 쓰고, <혼과 영>도 필요한 곳에 합당하게 쓰라고 창조해 주셨다. <육신>이 못 하는 것을 하는 ‘신과 같은 생각·혼·영’이다. 그런데 왜 ‘자기 신’을 안 쓰고 힘들게 사느냐.

23. 인간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같이 살기도 한다.

24. 현대인들은 신비하고 간편한 ‘스마트폰’을 쓰면서 편리하게 산다. 하나님은 이보다 100만 배 더 좋은 ‘뇌 스마트폰’을 창조하여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 자기 노력과 수고대로 뇌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귀히 쓰게 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필요하니 쓰라고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뇌 스마트폰’을 영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육적으로만 쓰고, 귀히 여기지 않고 되는 대로 쓴다. 최고로 귀히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인데 그리 쓰지 않는다.

25. <기계 스마트폰>으로 보화를 찾아올 수 있느냐. <자기 생각·혼·영>은 기능이 엄청나서 별의별 일을 다 한다. 그 자체로 태양에도 가고, 달에도 가고, 별의 세계에도 순간 가서 보고 와서, <자기 뇌>를 통해서 <자기 육>에게 전달한다.

26. <자기 생각·자기 혼·자기 영>과 늘 교통하고 대화해라. 그러면 <생각>도 신과 같이 되어 더 신령해지고, 그리함으로 <육>도 신과같이 유능하게 되고, <혼과 영>도 더욱 신적인 존재가 된다.

27. <자기 생각·혼·영>을 쓰면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높아지고, 말도 잘하게 되고, 머리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다. 뿐만 아니라 ‘휴거’도 이루어 영원히 ‘황금성’에서 살게 된다.

28. <차>가 있어도 ‘운전’을 못 하면 걸어가야 된다. ‘운전’을 배우면 순간 천 리 길을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혼>이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니 못 쓰고, 그로 인해 얻지도 못한다. ‘혼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자기 생각>이 <자기 혼>을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자기 육>이 알게 한다. 그러니 천 리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운전하여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쉽듯이, 쉽게 한다.

<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생이 주일말씀을 보면서 6시간 동안 뽑은 잠언 140여 개를 하루에 20~30개씩 연속으로 전해 줍니다. 어제 수요일 새벽에 이어서, 오늘 잠언을 전합니다.

29.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물을 주실 때, 처음에는 ‘말’, 곧 ‘말씀’으로 주신다. 인간이 그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얻게’ 된다.

30.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은 ‘눈으로 본 것’같이 확실하다. 고로 뇌에 꽂히고, 감동되고, 확신을 갖게 된다.

31. 폭탄에 대해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폭탄이 터지는 것을 눈으로 본 것’이 다르듯, ‘말씀을 그냥 듣는 것’과 ‘깨닫는 것, 깨닫고 행하는 것’은 다르다.

32. 하나님은 ‘말씀을 진정 확실히 알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확실히 알게 하신다.

33.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만사형통하고, 밭에 숨겨진 보화도 찾게 되고, 사고 전에 도움을 받고 피하여 살기도 한다.

34. 기도할 때 ‘잡념’이 왜 생기느냐. 눈을 감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생각’이 돌아간다. 이때는 ‘한 가지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잡념이 사라진다. 그 상태에서 또박또박 간구해라.

35.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 잡념이 안 온다.

36. 소리 내지 않고 <속 기도>를 하면, 잡념이 많이 온다.

37. 기도할 때 <잡념>이 오면, ‘이 잡놈아. 이 잡년아.’ 하고 책망하면 떠난다. 잡념은 기도의 방해꾼이며, 자기에게 해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봐주지 말고 책망해라.
38.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잡념>이 오면, 손으로 머리를 톡톡 쳐라. 그러면 ‘잡놈, 잡년’이 떠나간다.
39. 잡념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힌다.
40. <자기가 목적을 두고 하는 일 외의 생각들>이 모두 ‘잡념’이다.
41. <잡념>은 그냥 놔두면 꼬리의 꼬리를 물고 연속되어, 그 생각들이 꿈까지 연속되어 재수 없게 잡꿈을 꾸게 된다.
42. <뇌>와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각종 생각’이 활동한다.
43. <생각 집중>으로 잡념을 확 없애라.
44.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다. 그러다 움직이거나 걸어가면 저린 것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생각>도 가만히 두면 잡념이 생기고, 목적을 두고 생각하고 행하면 잡념이 사라진다.
45. <잡념>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이 ‘사탄·마귀·귀신’이다. 고로 기도할 때 ‘사탄·마귀·귀신’을 물리치기다.
46.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탄·마귀·귀신’을 물리쳐라. 주의 이름으로 꾸짖어라. 그리고 자기 경호 천사를 시켜서 멀하게 하여라.
47. 먼저 ‘사탄·마귀·귀신’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자기 뇌>와 <자기 옆>에서 ‘사탄·마귀·귀신’이 떠난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집중하여 기도해라.
48. 자기 입으로 명하여 ‘성령의 검, 말의 검’을 던져라. 그러면 그 말대로 ‘검’이 날아가서 사탄에게 꽂히게 된다.
49. 저마다 ‘사탄을 100% 멀하는 말의 무기’가 있다. 그런데 왜 안 쓰고 사탄에게 당하느냐.
50. 방에 모기가 날아다니며 자기에게 해를 주는데, 모기약이 있는데도 안 쓰고 해를 당하고 있겠느냐. 이와 같이 ‘사탄을 멀하는 말의 무기’가 있는데도 사탄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느냐. 사탄을 가만히 놔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네게 주신 말의 무기’로 사탄을 멀해라.
51.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면, 그 날은 기도를 못 한다. 고로 그 날 받을 것을 못 받고, 손해를 보고, 빈손으로 살게 된다. 그리 살지 말고, 새벽부터 자기를 방해하는 사탄을 멀해라. 네가 ‘말’로 명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행하시고, 네 경호 천사도 행한다.
52. 기도 못 한 것은 기어이 해야 된다.
53. 기도할 때 옆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서 집중이 안 되면, 귀마개로 귀를 막고 기도해라. 그러면 지구 세상 73억 명이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린다. - <아는 것>이 지혜다. 지식이다. 아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생이 주일말씀을 보면서 6시간 동안 뽑은 잠언 140여 개를 하루에 20~30개씩 연속으로 전해 줍니다. 어제 목요일 새벽에 이어서, 오늘 잠언을 전합니다.
54. <자기 생각·혼·영>을 써라. 그리고 불러라. <자기 경호 천사>도 불러라. - 너의 영적 무기, 영적 힘, 영적 군사다.

55.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불러라. - 너를 지킬 영원한 애인이며, 전능자이시다.
56. 기도할 때 <자기 혼과 영>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행해라. <혼과 영>은 순식간에 가서 돕는다. 도우면 공적이 되니, 좋아서 돕는다.
57.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 영적 힘, 영적 군사>를 쓸 줄 모르니, 사탄 마귀나 사람들에게 당하여 고통을 받고 지옥의 삶을 산다.
58. 빛보다 빠른 <자기 생각·혼·영>을 써라. 사탄도 빛보다 빨리 다닌다. 그러니 '육'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겠느냐.
59. <자기 생각·혼·영>을 써야 '휴거'도 빨리 되고, '만사의 모든 일'도 빨리 하게 된다.
60. <혼>으로 할 것을 <육>으로 하면 평생 해도 못 한다.
61. <혼>을 시켜서 <자기 생각>과 같이 하면 육이 순간 할 일을 하건만, <육>이 혼자서 하려니 불가능하다. 애간장만 탄다.
62. <혼>에게 한 마디만 해도 하는데 가만히 두니, <혼>도 가만히 있는 것이다. <혼>도 '시동'이 안 걸리면 가만히 있다.
63. <혼>은 '생각'으로 시동을 걸어야 움직인다.
6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매일 100번 이상 진정 부르고,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해라. 안 하면 너만 손해다.
65.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이 지옥에 가 있는데도 계속 부르며 도와달라고 하면서 산다. 그런데 왜 너희는 '유일하신 전능자 삼위일체'를 믿고 사는데도 안 부르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신적 존재 '자기 혼'도 '영'도 안 부르느냐. 그러니 받은 것을 남한테 뺏기고 불쌍하게 산다.
66. <육으로 못 하는 일들>이 있다. 특히 <영에 속한 것>은 '육'으로는 못 한다. '혼과 영'으로 해야 된다.
67. <자기 혼과 영>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믿고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 <혼과 영>도 '자기 육'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다.
68. <혼과 영>은 육이 못 가는 바다나 산이나 절벽에도 가고, 위험한 곳이나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도 가서 도와주고, 이미 죽으려 떠났기에 살리기 불가능한 자도 끌고 온다.
69. <자기 육>이 아플 때도 '자기 혼과 영'이 치료해 주고, <자기 정신>도 치료해 준다. 자기 혼과 영으로 안 되면, 성령님께 간구해라.
70. <육>도 <생각>도 <혼>도 자꾸 써야 유능해져서 더 잘하게 된다.
71. 모르고 살면 억울하다.
72.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리도 찾던 것'이 자기 주위에 있는데도 모르니, 천리 길까지 멀리 떠나서 찾고 다녔다. 결국 손해만 갔다. 후에 알고 늙어서 찾았으나, 못 써 먹고 죽었다.
73. <육>은 '천국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로 <혼>이 보고 '육'에게 알려 달라고 하면, <혼>이 '꿈'에서 보고 <자기 생각>을 통해 <자기 육>에게 알려 준다. 그러면 '육이 100년 동안 해도 못 보는 것'을 보게 된다.

74. <육>이 평생 가도 못 가는 먼 거리를 <혼>은 순간 갔다 온다. 꿈에 <혼>이 순간 이곳저곳 보고 다니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육>으로는 평생 가도 못 가는 거리다. <꿈에 혼이 본 것들>은 '자기 뇌'에 전달하여 '자기 육'이 알게 한다.

75. <혼>이 '천국'에도 갔다 온다. <육>으로는 못 간다. 천국은 <빛>으로 가도 수백 억 년이 걸리는 곳인데, <혼>은 순간 갔다 온다.

76. <혼>은 밤에도 낮에도 활동한다. <밤>에는 '혼계에서 혼 자체로 활동'하고, <낮>에는 '육계에서 자기 육을 쓰고 활동'한다.

77. <육>끼리 못 만나면 <혼>으로 만나면 만나게 된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사니, '자기 혼과 영의 변화'가 차원 높게 달라진다.

78. <육>이 못 만난다고 목을 매며 애태우지 말고, 다른 길이 있으니 그 길로 행해라.

79. <육>으로 못 하면 <혼>으로 하고, <혼>이 못 하면 <영>으로 해라.

80. <자기 혼>을 위해 기도해라. <자기 혼>과 대화해라. 그리고 <자기 혼>에게 부탁하고 할 일을 시켜라. <자기 혼>을 사용해라. 육이 못 하는 일을 하게 해라. - 이렇게 <혼>을 사용하면서 살면, '육이 사는 시간 100년'외에도 '혼이 활동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수백, 수천 년 더 사는 격이 된다.

81. <생각·혼·영>으로 했기에 잠언도, 말씀도, 각종 것들도 '육이 평생 못 하는 것들'을 이리도 많이 해 냈다. 모두 기록되어 남겨졌다.

82. 꿈에 <혼>이 노력하여 보화를 찾기도 하고, 앞날의 상황을 계시받기도 한다.

83. <육>이 '자기 혼'과 통하면, <혼>이 '꿈'에 좋은 것을 보고 '육의 뇌'를 통해 '자기 육'에게 알려 주고, <육>은 그대로 가서 찾거나 행하여 얻게 된다. - <혼>을 사용하려면 혼을 부르고, 혼에게 관심을 갖고, 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84.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육의 몸>으로 행하면서 얻으려면 1000년을 살면서도 못 얻을 것인데, <혼>을 알고 <혼>을 사용해서 하니 다 얻었다.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생이 주일말씀을 보면서 6시간 동안 뽑은 잠언 140여 개를 하루에 20~30개씩 연속으로 전해 줍니다. 어제 금요일 새벽에 이어서, 오늘 잠언을 전합니다.

85. TV·세상 향락·스마트폰·게임에 빠져서 살면, 인생 육도 혼도 영도 망한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망으로 사라지는 자'가 되어 찾을 수가 없다.

86. 미디어·게임·세상 향락 등 세상 것에만 빠져 사는 자들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다. 왜 그들을 따라 행하면서 기약 없는 지옥 고통을 받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지옥'에 가니, 지옥에 가는 자들이 그리도 많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87. 어떤 일이든지 '닥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모른다. 차가 달릴 때는 모르다가 차가 뒹굴면 그제야 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니 돌이킬 수 없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앞날은 자기가 행하는 대로 닥치는데 행할 때는 모르다가 홀연히 때가 오면 동에서 서로 해가 지듯이 자기 앞에 캄캄함이 닥치니 그제야 알고 후회하며 한탄한다. 그러나 때는 늦어서 돌이킬 수 없다.

88. 앞날을 알게 해 주고, 죽음과 위험과 사고에서 지켜 주고,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게 해 주고, 천국까지 가서 그 실체를 깨닫게 해 주고, 육이 못 하는 일을 하는 <혼>을 위해 기도하고 <혼>을 사용하라.
89. <혼>은 밤에 ‘혼의 세계, 꿈’에서 활동한다. <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시이며, <꿈 세계>는 혼이 활동하는 혼의 세계다. <꿈>을 예사로 여기지 말아라.
90. 꿈을 선명하게 꾸려면, 자기 전에 깊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혼>에게 필요 없는 곳에 가지 말고, 만날 필요 없는 자들을 만나지 말고, 꼭 할 일을 하라고 기도해 봐야 된다.
91. <혼>에게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 이야기해 놓으면, 약속을 지킨다.
92. 월명동에 남의 땅이라서 수십 년 동안 관리하지 않아 잡초와 잡나무들이 절어 있는 곳이 있었다. 때가 되어 그 땅을 사고, 그곳에 ‘큰 나무들’이 있는지 찾아보려 했다. 그곳은 밀림 같은 곳이라서 <육>으로는 힘들었다. 그래서 <내 혼>에게 그곳에 가서 ‘큰 나무들’을 찾아보라고 했다. <내 혼>이 가서 찾고 <내 육>에게 말해 주었다. <혼>도 찾기 힘들 정도로 잡초·잡나무·침녕굴이 뒤덮여 있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 한 지역에서만 ‘큰 나무 5~6주’를 찾았다. 치타솔이 있는 지역 아래인 ‘침터 밑’에 있었다. <육>으로는 아예 생각지도 않은 곳이었다. 나무 관리자를 보내서 나무의 가지들을 손질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모두 구경하게 해 놓았다. 105전, 100전, 85전, 70전으로 모두 한 아름이 훨씬 넘는 크기의 나무다.
93. 꿈에 <자기 혼>이 하고 싶은 대로 못 할 때가 있다. 이는 ‘자기 육의 생각과 행실’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혼>은 <육>을 따라서 행한다.
94. 꿈에 어떤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이는 <생시의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어느 때는 좋게 보여 주는 계시이고, 어느 때는 나쁘게 보여 주는 계시다.
95. <자기 혼>이 ‘다른 혼’과 사랑할 때가 있다. ‘비유’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다.
96. <꿈>을 꾸고 나서 <생시>에 자기가 직접 겪어 보면, “아! 그 꿈이 이것을 보여 준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97. <꿈>에도 ‘비유’로 보여 준다. 순리로 풀어야 된다.
98. 악한 자나 사기꾼에게 당하는 것도 <혼>이 무더서 그런 것이다.
99. <자기 혼의 급>이 높으면 ‘타인의 혼’이 혼계에서 자기 혼을 못 본다. 고로 그 혼을 다스리고, 그 상황을 다스리고, 싸워도 이기게 된다.
100. <휴거 된 영>은 ‘특권’이 있다. 고로 악한 자도 다스리고 주관하며 심판도 한다.
101. 자기 영이 휴거됐으면 <그 육>에게도 ‘특권과 위력’이 있다. 고로 <육>도 사탄·마귀·나간 자들을 다스리고 주관한다.
102. <혼>이 먼저 보고 예시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한다. <육>이 늘 <혼>에게 관심을 갖고 <혼>과 대화해야 <혼>이 <육>에게 가르쳐 준다.
103. <뇌>에는 ‘혼과 육이 통하는 선’이 있다. 그 선으로 혼과 육이 통한다. 그러나 <육>이 <혼>을 생각하고 <혼>에게 신경을 써야 ‘생각’으로 전달되어 서로 통하게 된다.
104. <생각>은 형체가 없다. <혼>은 육체같이 형체가 있다. <영>도 형체가 있다. <생각>은 형체가 없지만 ‘육·혼·영’처

럼 형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해라. <바람>은 안 보여도 강하듯이, <생각>도 안 보이지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써야 된다.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05. <혼>은 자기 육의 애인이다. 애인보다도 자기 육과 더 일체 된 존재다. 고로 늘 사랑하고 찾고 대화해라. 그리고 키우고 발전시켜라. 그러면 <혼>이 유능하게 행하여 큰 복을 받게 된다.

106. 전도할 때도 <혼>을 사용해라. <자기 몸>과 같이 <혼>이 꼭 필요하다. 성령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면서 같이 행하여라.

107. <혼>을 ‘자기 육’과 일체 시켜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해라.

108. <혼과 생각>에 의해서 초능력도 행하게 된다.

109. <지난날 육이 행한 일들>은 거의 다 잊어버린다. 그러나 <혼>에게 물어보면 많이 알고, <영>은 더 많이 확실하게 안다. <생각>을 집중하면 ‘과거에 겪은 일들’이 기억나게 해 준다.

110. <과거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가 도운 것, 해 준 것>을 잊으니, 현재에도 미래에도 손해를 보는 것이다.

111.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안 도우신다. 깨닫고,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또 주신다.

112.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라. 전능자의 행하심을 알아드려라.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과 함께 해 준 것을 잊지 말아라.

113. 공부도 혼적으로 하면 3배 이상 잘되고, 암기도 잘되고, 생각이 총명하여 총명한 상태에서 행하게 된다.

114. <뇌>는 자기가 하는 대로 발달된다. 미디어나 인터넷에 빠져 살면, 뇌에 그런 것으로 꽂 차서 뇌에 거미줄이 쳐져서 침침하다. 또한 뇌가 그쪽으로 중독되어 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다 결국 <뇌>가 굼아서 고름이 흐른다. <뇌의 생각>이 그러하니 육적 폐인, 정신적 폐인, 생각 폐인, 고물 인생 되어 버린다. 그러면 하늘나라를 상속 받지 못한다.

115. 혼적으로 기도하면, 생각이 집중되어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씩 기도한다.

116. 혼적으로 기도하면, 육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된다.

117. 육적 차원 – 혼적 차원 – 영적 차원이다. 차원대로 능력이 나가고, 차원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차원대로 말씀도 외친다.

118. 설교도 육적 차원 설교인가, 혼적 차원 설교인가, 영적 차원 설교인가, 성령과 주와 일체 된 설교인가 들어보면 안다.

119. <달변가가 외치는 것>과 <은혜 받고 성령으로 외치는 것>은 다르다.

120. 영적으로 외치면 신혼골수를 쪼개고, 꿰뚫어 보고, 생각도 혼도 영도 더욱 살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육도 영도 운명이 바뀐다.

121. <잠언>도 ‘영의 것’이 아니면 ‘육의 것’이다.

122.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받아서 <생각·혼·영>으로 살아야 ‘신’과 같이 된다.

123. 미련한 자, 욕적인 자는 필요 없이 바닷가의 모래알을 세어 보다가 인생의 해를 아깝게 넘겨 버린다.

124. 미련한 자, 욕적인 자는 ‘필요 없는 것’만 보고 듣고, 거기에 빠져서 행한다.

125. <뇌>는 어떤 것에 중독이 되면, 그것을 보고 듣고 행해야만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고로 그것을 계속 하게 된다. <생각>을 잘못 길들이면 ‘죽는 길’인데도 좋아하면서 간다. 정신병자다.

126. 정신병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행한다.

127. 미친 자들은 옷을 훌라당 벗고 좋아 뛰어다니면서 웃고 다닌다. 혹은 더러운 옷을 입고 뛰어다닌다. 새 옷을 주면 안 입는다.

128. 이 시대도 그러하다. 새 옷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삶>을 가르쳐 주면 싫어하고, <자기 행실의 옷>이 걸레 같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129. 구시대인들을 보아라. ‘그 행실의 옷’을 보아라. 오래 입어서 다 헤졌으나, ‘새 시대의 옷’을 안 입는다. 실패자다. 영계에 가서 보아라. 숨기지 못하리라.

130. <육으로 안 것>은 ‘관념적’으로 안 것이니 ‘인본주의’가 된다. <인본주의자>는 ‘육’을 중심해서 사는 자다. 고로 <영적인 것>도 ‘육적’으로 생각한다.

131. <혼적·영적으로 안 것>은 ‘눈으로 본 것’과 같다.

132. <깨닫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다. 고로 확신하게 된다.

133. <주를 아는 것>도 ‘혼과 영’으로 알아야 깨닫고 확신한다. 이런 자가 ‘주를 실제로 본 자’다. 너는 주를 보았느냐?

134. <육으로 지식으로 안 것>은 약해서 끝까지 못 간다. 또 행하지도 못 한다. <혼>으로 <영>으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135. <혼>이 알고 <영>이 알면, <육>보다 견고하게 알고 행한다. 끝까지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136. <영>은 ‘신적 존재’다. 고로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강하다. 고로 영적으로 깨닫고 알면, 즉시 행한다.

137. <주>를 ‘육적’으로만 알고 따르다가는 결국 등을 돌리고 간다. 그러다 후에 후회하며 통곡한다. 그러나 이미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 탄 세계로 갔으니 어쩔 수 없다. 다시 돌아오는 배가 없다.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 “9월 20일 주일말씀을 보면서, 함정에 빠진 귀한 생명을 빼내듯 6시간 동안 잠언을 빼냈다.” (이 잠언을 주시며,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현재>가 좋아도 <결국>이 안 좋으면, 앞날에 희망이 없다.

2. <현재의 삶>이 <결국>을 결정한다. <그 결국>을 가지고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3. 아무리 <현재 좋은 일>이라도 <결국 실패하는 일>이라면, 행하지 말아라.
4. 어떤 일은 <결국 실패하는 일>이지만 <현재>만 보고 하다가 실패하고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다음부터 그런 일은 아예 안 해서 유익이 되기도 한다.
5. 어느 때는 '해라' 하고, 어느 때는 '하지 말아라' 한다. 이 말을 듣고 헛갈린다 하지 말아라. <장단점>을 두고 말한 것이다. 또 판단을 해 보면, 교훈이 되도록 말한 것이다.
6.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삶의 결국>을 가지고, 그 인생을 결정하신다. 곧 <영원한 영의 삶>이다.
7. <결국>은 '현재의 삶을 종합해서 계산한 액수'와 같다.
8. <현재>가 좋아도 <결국>이 안 좋은데, 왜 자꾸 투자하느냐.
9. <징검다리>를 밟고 지나가다가 돌이 끄떡거리면, 순간 그 밑에 돌을 괴어 고쳐 주고 안전하게 지나가야 된다. 이런 일은 순간 투자하고 가라.
10. <징검다리>를 건널 때 간격이 넓은 곳은 건너뛰다가 실수한다.
11. <하나의 교훈>은 100가지, 1000가지를 깨닫게 한다.
12. 사람들은 <현재>가 눈에 보이고 몸에 부딪히고 느껴지니, <현재>만 생각하고 산다. 운전할 때도 멀리 앞을 쳐다보듯이, <현재>를 보고 살되 <미래>를 생각하고 쳐다보아라.
13. <현재>만 생각하고 살면 <미래의 희망>이 약하고, <미래>가 아예 없기도 하다.
14. 사람은 <현재>만 생각하니, 이미 <미래의 희망 없는 삶>을 결정짓고 사는 꼴이 된다.
15. <몸>은 '오늘'을 살되, <생각>은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면서 내다보며 살아라. <현재>를 살면서 <결국,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라. <현재>에도 '네'가 받고 <결국, 미래>에도 '네'가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16. 왜 <현재>에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라. 월명동 돌 조경을 쌓을 때, <앞의 돌>만 생각하고 큰 돌이 좋다고 '큰 돌'을 앞에 쌓았다. 그러고 나서 뒤에 돌을 놓으려니, 공간이 좁아서 놓을 수 없었다. 그러니 계속해서 <뒤의 돌들>을 못 쌓게 됐다. 결국 <앞의 돌>을 빼냈다. <앞의 돌>은 '현재'요, <뒤의 돌>은 '미래'다. <앞, 현재>만 위해 살면, <뒤, 미래>가 없다.
17. 돌이야 잘못 쌓으면 <앞의 큰 돌>을 꺼내고 다시 <작은 돌>을 놓고, 거기에 맞춰서 <뒤의 돌>을 놓으면 된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현재만 보고 좋다고 <앞의 인생>을 살아 버리면, 그 인생은 다시 빼낼 수가 없다. 고로 <뒤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인생 실패하게 된다.
18.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한다. 고로 '아예 잘 살기'다.
19. <현재의 것>보다 <미래의 것>이 더 크다. <현재>에 수고하면 <미래>에는 그 터전 위에서 하니, 더 크게 행하게 된다.
20. <현재> 편하고 좋다고 <현재>를 위해서만 살면, <미래>에는 해 놓은 것이 없어서 결국 고통 속에 허덕이게 된다.
21. <현재>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낫고 좋아야 <현재> 고생해도 희망으로 기뻐하면서 산다.

22. <현재>는 ‘육의 삶’이요, <미래>는 ‘혼과 영의 삶’이다.

23. 절벽에서 발을 디딜 때 ‘먼저 디딘 발’이 편하다고 현재만 생각하고 디디면, ‘뒷발’은 디딜 수가 없어서 떨어진다. <삶>도 그러하니, 절대적으로 <현재>를 살면서 <미래의 삶>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24. 섭리사에 ‘환난과 핍박의 눈보라’가 휘날렸지만, 제철을 기다리며 <미래>를 보고 희망으로 달려오니 ‘휴거의 문’이 활짝 열렸다.

25.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살면, 다 이긴다.

<2015년 9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 오늘 잠언은 일본 순회용으로 나간 잠언입니다. 화요일에 이어지는 잠언은 목요일부터 다시 제공됩니다.

1. 신보다 인간을 중요시하고 인간을 중심하는 것 보고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2. 성삼위가 구원자를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길>이다.

3. 아는 자는 기뻐 매일 희망으로 살고, 모르는 자는 탄식하며 슬피 울며 산다. (주 아는 자, 기뻐 살아간다.)

4. 루시엘 천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와 천사들을 생각하고 막다가 천국에서 쫓겨나 루시퍼 마귀가 되었다. 천지 창조 후, 지구 세상 73억 명을 보고 ‘왜 이리 큰일을 막았나?’ 후회하며 대가리를 돌에 짓뭇갠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일, 곧 지구 현실이 이리 된 것을 보고 자기가 왜 하나님이 큰일 하심을 막았나, 정말 미련한 짓을 했다고 하며 돌에 자기 머리를 내리쳐 머리를 다 뭇개 놓았다.)

5. 판단의 지혜다. (지혜가 판단에 있다. 제대로 판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지혜다. 정말 잘해야 된다.)

6. 화장실 갈 때 되었는데도 안 가고 막으면 입 구멍으로 쉰다. (섭리 막는 기성인들, 막은 자들, 배설물을 입으로 배설한다. 계시다.)

7. 때가 되어 아기를 낳는데, 못 나오게 막으면 아기도 죽고, 아기 엄마도 죽는다. 막은 자도 아기 엄마가 몸부림치다 발로 차서 죽는다.

8. 하나님이 주신 제때 제시간에 하지 않는 자, 죽는다.

9. 동에서 서까지 적나라하게 찾아야 찾는다. 만일 8구멍만 찾아보고 나머지 한 구멍을 안 찾으면 최고의 핵은 못 찾고 실패한다.

10. 제때 하면 찾는 것이 옆에 있기에 바로 찾아 성공한다. 때 놓치면 천 리나 멀어진다.

11. 인생 왜 사는지 모르면, 육신 일생 단명에서 끝난다. 아는 자는 영원히 산다.

12. 인생들 왜 사는지 핵을 못 찾아서 곤고하고 허무하게 산다.

13. 핵을 못 찾으면 ‘핵핵’거리다 지쳐 쓰러진다.

14. 작은 시간 작은 데다 써라. 큰 데 쓰면 하다 만다. 돈도 사람도 그러하다.

15. 자기 때가 오면 맘도 생각도 흥분되어 몸도 생각도 날며 행하여진다.

16. 흐르는 강을 막으면 강물이 썩고, 막은 자도 돌머리라 골이 썩는다.

17. 분별의 지혜다. 쪼개 보면 속을 보게 되니 분별할 수 있다.

18. 말이 천국 만든다.

19. 생각하는 차원을 높여서 보아라. 그럼 그 보고자 하는 존재물로 보여 신비하다. *잠언 설명: (동굴만 신비하다 하지 말고, 월명동도 지상 위에 만든 동굴로 보아라. 좌우에 세운 돌을 종유석으로 보아라. 연못은 굴속의 호수로 보아라. 생각의 지능이 높으면 여러 가지로 본다.) - 하나님 음성.

20. 생각하는 차원을 높이고 보아라. 그리하면 신비하고 감탄하리라. (월명동을 여러 가지로 보아라. 성자바위 보듯이, 신비한 굴로 봐라. 돌들을 종유석으로 보아라. 영계는 여러 가지로 본다.)

21. 생각하는 차원을 높이어 다른 존재물로 보아라. 그리하면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워, 감탄하며 기뻐 흥분되어 기절한다.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26. 농부는 <현재> 고생돼도 <미래>를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추려 내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봄과 여름 내내 고생돼도 곡식을 키우고 가꿔야 된다.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여, 열매를 구경하지 못하는 때에 먹고 즐기게 된다. 인생 삶도,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27. <현재> '육'만 위해서 살면, 육은 편하다. 그러나 일순간에 세월이 흘러 <미래>가 닥치게 되고, '육의 미래, 영의 미래'에는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며 고생하게 된다.

28. <현재>에 '육'을 위해 살면서도 '영'을 중시하여 <미래>를 위해서 살면, '휴거'다. '기쁨과 희망과 사랑의 세계'다.

29. <현재>에 시간을 낭비하며 편하게만 사는 자들은 <미래>에 '모래사막'에 처해 살게 되고, '아수라장 삶'에 처해 살게 된다.

30. <시대 복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도 힘들고 고생된다고 '주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간다. 거기서 100배, 1000배 더 고생한다. 지옥 고생까지 합치면 수조 배 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 품'을 벗어나지 않은 자들은 그동안 자기를 만드느라 힘들었고, 또 사탄 마귀로 인한 '가정 핍박, 구시대 핍박, 악평자들의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면서도 굳건하게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 때에 따라 계절이 지나가듯, 섭리사에도 <연단과 핍박의 시간>은 지나갔고, 결국 지나가게 된다. 그리고 <이상세계>가 연속된다.

31. <현재>에 힘들어도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을 개발했다. 결국 그로 인해 '희망'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한 휴거'까지 주셨다.

32. 힘들어도 '자기를 개발하고 고치고 만들기'다. 그래야 자기를 자기가 잘 다스리고, 인생을 쉽게 살고, 잘된다.

33. <현재의 삶>으로 <미래의 삶>이 좌우되고, <미래의 삶>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 '영원한 지옥'이나 '영원한 천국'이나 하는 것까지 결정된다.

34. 현실주의로 살면서 육적으로 먹고 즐기는 자들을 보면, 자기도 그렇게 먹고 즐기며 살고 싶다. 그러나 '당장 보이는 것'에만 처해 살면, 미래에는 '뻔히 예정된 길' 가듯 한다.

35. <운명>이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36. <예정>이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을 말한다.
37. <신의 예정> 속에서 '자기 행위'로 인해 <운명>이 결정된다.
38. 항상 <예정된 것> 위에 '자기 책임·노력·수고의 결과'이며 '결정'이다.
39. 사람은 <몸>도 <마음>도 타고난다. 그 터전 위에 자기가 자기를 개발하고 고치고 만드는 것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 + 자기 노력과 개발'이다.
40. 매일 '주의 뜻'을 달고 살아라. 그러면 <육>도 <영>도 100% 승리하고 형통한다.
41. 매일 '주의 뜻'을 꽃고 살아라. 그러면 매일 '사랑과 진리'가 불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황제' 하도록 축복해 주신다.
42. <뜻을 달지 않은 배>는 파도에 밀려가 바위 벽에 부딪혀 파산하고, 높은 파도에 밀려가 깊이 가라앉는다. <섭리 인생>도 그러하다.
43. <현재> 힘들어도 '시대 말씀'대로 살아라. 이와 같이 사는 삶은 '육도 영도 100% 성공이 보장되는 삶'이다.
44. 삼위일체는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하는 시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명한 말이니, 100% 성공이 보장된 삶이다. 육의 성공 보장, 영의 성공 보장이다." 하셨다.
45. <현재>만 계산하고 사는 자는 <미래>가 없다.
46. <미래>를 계산하지 않고 <현실>만 계산하고 실패의 길을 가는 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 왜 그들의 인생을 보고 부럽다고 하며 따라가느냐.
47. 하나님은 '새 역사에 와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주시나니, 듣고 깨닫고 '시대의 눈'을 떠서 '이 시대'를 잘 보고 분별하고 살아라.
48. 선생이 20대 때 월명동 마을에는 젊은 남녀가 15명 정도 살았다. 그 밑의 석막리 마을까지 합하면, 80호의 집에 150여 명이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아들딸을 낳고 자랑하며 즐기며 살았다. 그들을 쳐다보면 삶이 화려해 보였고 부러웠다. 그들은 자기 삶의 즐거움을 느끼면서, 내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말했다. 내가 월명동을 떠날 때까지 그 말을 했다. 그 당시 월명동 마을 사람의 미래>를 몰랐다. 내 부모와 형제들도 몰랐다. 선생 자신도 희미하게만 알았지, 하나님의 비밀이라서 몰랐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만 믿고 행했을 뿐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49. <현재>도 그러하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믿고 끝까지 가면 확실하다! 그것을 믿고 행하여라!
50. 오직 <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계획하신 인간 창조 목적>을 알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다. - 결국 '최고의 것, 휴거'를 얻었다. 그리고 휴거를 이루고 있다. 끝까지 가면 '영원한 것 보장'이다.
51. 지난날 동네 사람들은 <현실>을 위해 살면서 '현실의 것'을 가지고 쌓아 놓고 사니, <미래>를 위해 사는 나에게 "우리같이 살아라. 우리같이 쌓아 놓고 성경도 풀고 신앙도 해라. 그래야 잘살지 않겠냐." 하며, '인생 선생, 신앙 선생'까지 되어 말했다. 그 당시에 '현실의 것'을 내세우며 말하는 그들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미래>에 인생을 투자하며 살았으니, 그 당시에 '현실의 것'은 없었다. 내게는 '오직 전능자'밖에 없었다. 결국 <나의 때>가 왔다. 이

때는 <하나님의 때>였다. 이때 ‘나의 뜻’을 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온 인류의 때가 와서 ‘삼위일체가 내게 주신 시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국내와 세계에서 모여들어 월명동으로 왔다.

52. <현재> 고생돼도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가정·민족·세계·천주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53. <미래>에 이르러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며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는 없다. 이미 실패로 끝난 것이다.

54. <과거>에 ‘그 당시 현실’만 보고 살았던 자들은 그때 자기 인생을 육적인 것과 물질에 다 투자하고 살았기에 그때는 화려하게 살았다. 선생은 그들에게 “<미래>에 가서 나를 보아라. ‘화려한 하늘의 때’가 온다. 그때 와 보아라.” 했다. 성자가 내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내게 ‘현실의 것’이 없으니, 그들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며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저 ‘미래의 희망’만을 생각하며 막연히 대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선생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너희들, 내가 <미래의 영계>를 보고 다 안다. 정말 무지해서 모르는구나.’ 했다. 그리고 성자께도 “정말 모르는 자들입니다.” 했다.

55. 세월은 유수같이 빨리 흘러간다. 결국 세월은 갔고, <과거>에서 살았던 대로 <미래>를 맞았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고 6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 오시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루는 ‘황금의 역사’를 펴는 것이다.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받고 갈고닦은 자를 사명자로 택하여,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리함으로 구원 역사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 기다린 휴거 역사’를 펴기 시작했고, 이루었고, 이루고 있다.

56. 그때 <현실>만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벌써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쓸쓸한 삶을 살고 있다. <육계>에서 ‘육’이 그러하니, <영계>에서 ‘그 영’은 얼마나 더 보잘것없겠느냐.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

57. <과거의 삶>으로 <현재의 삶>이 결정되고, <현재의 삶>으로 <미래의 삶>이 결정되고, <미래의 삶>으로 <영원한 세계>가 결정된다.

58.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해 놓은 삶’이 돼야 한다. 선생이 그리 살았더니 <결국>은 ‘육의 형통, 영의 영원한 형통’이 이뤄졌고, 이 세상에서도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다.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59. <자기 청춘의 때, 자기에게 최고 좋은 때>를 ‘하늘’을 위해서 써라. 그래야 ‘미래’가 크다.

60. 인생 최고로 귀한 때인 <젊을 때>는 ‘세상’을 위해 쓰고, 좋은 때 다 지나고 <나이 들었을 때> ‘하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크게 쓰지 못하신다. 왜일까?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면, 먼저 인생을 연단시키고 다른 사람보다 배로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데 30~40년은 써야 된다. 고로 하나님께 크게 쓰이려면 ‘인생 60년’이 필요하다.

6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불렀을 때 따라라. 그때가 기회다. 늦으면 그만큼 손해다.

62. <시간과 때>가 오면, 자기 것으로 빼앗아 써라!

63. 성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자를 따르면 <사랑의 힘>이 ‘머리’가 되어 자기를 주관하고, <진리의 힘>이 ‘손과 발’이 되어 행하게 되고, <진리와 사랑의 힘>이 ‘날개’가 되어 날게 된다.

64. <시대 구원자의 마패>는 하나다. <따르는 자들에게 주는 마패>도 하나가 있다. 따르는 자들의 대표에게 주는 것이다. 그 마패를 받은 자가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발판’이 되고, 내적 역사를 펴는 데 ‘주의 손발’이 되어, <구원자>를 핵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펴는 데 ‘하늘과 땅의 매개체’가 된다.

65. <상>도, <사명>도, <상징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여 주신다.
66.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 상징자’를 세우시고 ‘그를 상징할 만한 것’을 주신다. - 돌, 바위, 나무, 땅, 지역의 형상 등이다.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67. <상징한 것>을 귀히 보고 관리해라. <하나님이 상징으로 주신 것>을 해되게 하는 자는 ‘생명’에 해가 된다.
68. 시대에 따라서 ‘상징’이 바뀌기도 한다. <대둔산의 분체 상징술>도 ‘독수리봉의 솔’에서 ‘휴거술’로 바뀌었다. 대둔산에서 제일 잘생긴 솔이다.
69. <상징>은 ‘표시’다.
70. <상징 돌, 상징 나무> 등 상징으로 주는 것은 마치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가 ‘금메달’을 받듯이, ‘승리의 대가’로 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71. <몸>에 ‘상징’이 있기도 하다.
72.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사랑의 상징 표시>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택한 자, 사랑하는 자의 표시’로 입히신 것이다.
73. 하나님은 <상징>을 타고나게도 하신다.
74. 다윗도 <상징>을 타고났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상징을 보고 눈치 채고 감동을 받아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
75. <최고 정상>에 올랐을 때 사탄도 최고로 공격하고, 자기도 최고로 힘든 때를 보낸다. 이때 좌절하지 말고 희망으로 해라.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다 이겨 오지 않았느냐. 이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을 가지고 결판을 내는 때’다.
76.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시니,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행해라. 불꽃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 그때마다 시간마다 보호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그 말씀대로 하면 된다!
77.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자신의 뜻을 행하시며, 거기에 맞춰 상황과 여건을 트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국에는 잘되니, 과정 중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끝까지만 해라.
78.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갖다 놓고, 거기서 목적을 이행하시며 형통하게 하신다.
79. <치타 돌>도 처음에는 그리 큰 계곡에서 일곱 명이 하루 종일 수천만 개의 돌을 보면서 찾았어도 못 찾았다. 만일 그날 일찍 ‘다른 형상 돌’을 발견하여 주웠으면, 식사하고 바로 집에 돌아갔을 것이니 <치타 돌>을 못 주웠을 것이다. 하루 종일 찾았어도 ‘마음에 드는 돌’을 못 찾았기에 해가 질 때쯤 점심 식사를 하고, 선생 혼자 마음에 감동이 되어 계곡 따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찾다가 <치타 돌>을 찾은 것이다. 선생은 그곳에 <치타 돌>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틀어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80.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보아라. 크고도 큰 지구 세상 가운데 ‘좁디좁은 월명동 한 마을’에서 나왔다. 세상 어느 누구도 몰랐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아셨다.
81. 처음에 돌을 찾던 곳은 물이 양쪽으로 깊이 흘러갔고 물살도 거셴다. 물의 색도 시퍼렇게 보여서 무서웠다. 위험하니, 그런 곳에 들어가 돌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물살이 약해지는 곳까지 500m쯤 내려갔다. 내려가다 보니, 바닥이

높아서 지역이 조금 솟아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의 돌 몇십 개가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치타 돌>을 찾았다. 만일 <치타 돌>을 못 줌과 그냥 놔뒀다면, 거친 물살에 돌이 닳아서 몇 년 만에 ‘형상’이 없어졌을 것이다. 또 장마가 지면 돌이 떠내려가서 물속 깊이 묻혔을 것이다. <치타 돌>은 수천 미터 위에서 떠내려와 ‘딱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 돌도 처음에는 큰 돌이었는데 수백 년 동안 물살에 부딪혀서 그 크기로 된 것이고, 그 돌에 ‘딱 치타 두 마리 형상’이 보였을 때 그 위치에서 물 위로 올라온 것이다. 그때, 그날, 그 시간! 성자는 선생을 그곳으로 보내어 <치타 돌>을 줌게 한 것이다. 사연을 들어 보면 신기하다. 섭리역사로 온 ‘치타 조은이’도 그렇게 표적으로 찾았다.

82. 치타 조은이는 선생이 전도했다. 데려온 자는 데리고 오기만 했고, 선생이 핵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전도했다. 조은이가 월명동에 처음 왔을 때, 선생은 월명동 작업으로 인해 최고로 바쁜 때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조은이가 속해 있던 명동 전도단 한 팀’만 만났다. 그중에 조은이도 있었다. 그 순간 1~2분 인사해 주면서, ‘핵’을 가르쳤다. 선생이 성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자가 준비해 놓은 치타 돌’을 순간 주웠듯이, ‘조은이’도 복음으로 순간 전도하여 낳았다. 기적이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나를 통해 계획적으로 하신 것이다. <명동에서 온 사람>을 <월명동 사람 선생>이 만나 전도한 것이다. 데려오는 자, 말씀을 넣어서 알고 따르게 하는 자, 각각 다르다. 너희도 뛰면서 생명을 만나고, 데려오고, 가르쳐라.

83. <물>과 <물>이 만나듯이 <명동>과 <명동>이 만나 하나님의 새 역사의 뜻을 펴도록 삼위일체가 행하셨다. 나는 5~10%를 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다 하셨다.

84. <큰사람>이라도 성자는 많은 자들 중에서 누가 그 주인공이 될지 안 가르쳐 주신다. 미리 가르쳐 주면 ‘그 한 사람’만 신경 쓰니,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이다. 고로 성자는 그 육신을 쓰고 ‘많은 자들’을 다 ‘기준자’처럼 골고루 기르신다.

85. 사과나무, 포도나무, 복숭아나무 등 각종 과일나무를 길러 봐야 열매가 열리면 무슨 열매인지 안다. 사람도 최고로 퇴비하고 기르는 것이다.

86. 과일나무 주인은 어떤 나무, 어떤 가지에서 열매가 열릴지 모르니, 모든 나무에 다 퇴비해 주고, 모든 가지들을 다 관리해 주고 사랑해 준다. - 삼위일체도 구원자도 모든 자들을 다 기르며 사랑해 준다.

<2015년 9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 “9월 20일 주일말씀을 보면서, 함정에 빠진 귀한 생명을 빼내듯 6시간 동안 잠언을 빼냈다. <잠언 쓰기 1차 봉우리>에 오르니 6시간이 지났다. 이제 <교정하기 2차 봉우리>에 올라야 된다. 교정하기 2차 봉우리에서 2시간이 또 걸렸다.”(이 잠언을 주시며,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87. <미래를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위해 살아가.

8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현실>에는 뿌리고 가꾸고, <미래의 최종 창조 목적>을 위해 6000년간 역사해 오셨다. 결국 행하고, <휴거>로 그 뜻을 이루셨다. 성삼위와 함께 그 뜻을 이룬 자들이 ‘지구 세상에서 최고의 뜻을 이룬 자들’이다. 가치를 모르고 소홀히 하다가 뺏기면, 다시 찾기 어렵다.

89. <시대 휴거, 마지막 부활인 휴거를 이루는 영원한 말씀>을 실천하여, ‘지구 역사상 전능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이루어라. 그리고 끝내 뺏기지 말고 살아가. 영원하라.

90. 휴거되면, ‘육신’이 죽기 전부터 ‘영’은 <천국 황금성>에 가서 살게 된다. 고로 ‘휴거된 자기 영’을 부르면 이야기해 주고, 황금성에 대해서도 물으면 말해 준다. 작은 것들은 ‘자기 혼’에게 물어보고, 조금 큰 것들은 ‘자기 영’에게 물어보고, 더 큰 것은 ‘주’께 묻고 ‘삼위’께 물어라. 늘 부르기다. 찾기다. 교통이다. 대화다.

91. 하나님의 역사상, 지구 세상 역사상 더 이상 없는 <휴거>다. 이 <휴거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늘 ‘희망’에 불탄다. 이 <최고의 축복이며 희망인 휴거>에서 멀어지면 ‘희망’도 없고 ‘힘’도 없다.

92.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용기’를 주고 ‘칭찬’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라.

93. <미래의 희망>을 ‘실체’로 얻으려면,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며 ‘심정 일체, 생각 일체’ 되어서 해라. 그러면 결국 다 이룬다!
94. 믿고 행하면, 다 이루어지는 섭리역사다.
95. 환난, 풍파가 오고 가도 끝까지 가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섭리역사다.
96. 하나님의 1000년 역사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섭리역사다.
97. 영원한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역사다.
98.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 주의 뜻>만 ‘네 생각’에 깊이 꽂아라. 매일 얻는다.
9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매일 교통해라. 매일 세상 바다의 높은 파도를 헤쳐 나간다.
100. <뜻의 힘>으로 가야 먼 인생길, 섭리 길을 힘 안 들이고 가게 된다.
101.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과 성자의 능력과 힘’이 오게 한다.
102. 갈수록 불타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새 역사다.
103. 믿어라. 확신해라. 끝까지다.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믿고 확신하고 행하는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너를 인도하신다.

<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 말씀) <생각>은 존재하는데도, 안 쓰면 없는 것 같다. 식사하는 중에 성령님과 대화하다가 성령님이 주신 잠언이다. 한참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순간 성령님을 잊어버렸다. 다시 성령님이 생각나서 찾고 대화했다. 이때 성령님이 주신 잠언이다. 때는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점심 식사 시간이다. 이날은 아침에 접견이 있었던 날이다.
2. <생각>은 ‘형체’가 없다.
3. <생각>은 ‘말’로 나와서 ‘실체’를 만든다.
4. <생각>은 ‘몸’으로 행하여 ‘실체’를 만든다.
5. 월명동은 <하나님의 생각과 구상>을 행하여 ‘실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6. <생각>이 ‘실체’를 만든다.
7.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 100년이 짧고,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인생 100년이 길다.
8. 시대 구원의 사명을 받고 온 자라도 인생 100년이라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 수한에는 한계가 있다. 성삼위의 뜻을 다 이루고 인생들을 구원하기에는 인생 100년이 짧고도 짧다.
9. (하나님 말씀) 배로 빨리 뛰면 된다.
10. (하나님 말씀) 배로 빨리 뛰면 배를 더 사는 것이니 다 할 수 있다.

11. 이 세상에 ‘배’로 빨리 뛰는 사람은 없다. ‘한 뼘’ 더 앞서 갈 뿐이다. ‘그 한 뼘 차이’로 다른 사람들을 앞질러 간다. ‘배’나 더 빨리 뛰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질러 갈 것이다.
12. 배로 빨리 뛰려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 <생각>이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다.
13. <생각>이 빨리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신’이 되어서 하면 된다. 그러면 2배 빨리한다.
14. <생각>이 2배 빨리 돌아가서 해야, 2배 빨리 앞질러 가게 된다.
15. 예수님이 와서 ‘신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니, <신약역사>는 <4000년 구약역사>보다 2배 빨리 돌아갔다. 고로 2000년 만에 역사를 이루었다.
16. 베드로를 보아라. 깨닫고 ‘신의 생각’을 받아서 행했기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면서까지 주를 증거했다.
17. 세상에서도 <생각>이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몇십 년 전에 땅을 사고 집을 사서 돈을 번다.
18. <생각>을 놀리지 마라. <생각>을 놀리지 말고 ‘신의 생각’을 받아서 2배 빨리 행하면, 그만큼 인생을 앞질러서 살게 된다.
19. 하루를 봐도 <머리>가 짹짹 돌아가서 행하는 날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
20. 하나님의 머리를 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 그러면 10배, 100배, 1000배 빨리하게 된다.
21. 하나님의 머리를 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월명동>은 ‘무’에서 ‘유’가 되었고, 딴 세상이 되었다. 만들기 전에는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했지만, 만든 후에는 “여기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 한다. 하나님의 머리를 쓰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라. 생각이 두 배로 돌아가서 그만큼 인생을 앞질러서 살게 된다.

<2015년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에서 이겨야 된다.
2. <생각>을 훈련하여 강하게 해라.
3.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생각을 집중하여 반복하여 생각해라.
4. <생각>은 ‘몸’과 같다. <몸>도 가만히 놔두면 흐리멍덩하여 ‘내 몸이 있는 것인가?’ 하며 안 느껴진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두고 반복해서 행하면 ‘몸’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5. <생각>도 안 쓰면 흐리멍덩하다. ‘어떤 목적’을 두고 집중해서 생각하며 반복해서 생각하면 ‘이것이 생각이구나!’ 확실하게 안다.
6. <생각>이 말한다. 생각의 입이다.
7. <생각>이 듣는다. 생각의 귀다.
8. <생각>이 본다. 생각의 눈이다.
9. <생각>이 확실해야 제대로 보고 듣는다.

10. <생각>은 ‘육신’ 쓰고 다닌다.

11. <생각>이 ‘몸의 주인’이다.

12.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생각의 눈, 생각의 귀, 생각의 입’도 가만히 있게 된다.

13. <생각>에는 ‘자기 생각, 인간의 생각’이 있고, ‘전능하신 성삼위의 생각, 신의 생각’이 있다.

14. 때마다 <신의 생각>을 가지려면 간구하고 애원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이 느껴지면서, 점점 그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된다.

15. <신의 생각>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 신의 생각을 갖기 위해 간구하고 애원하면, 하나님은 때마다 ‘그때에 해당하는 생각’을 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신다.

16. <인간의 보통 생각>을 가지고서는 <신의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신과 연결돼야 ‘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

17. 어떻게 해야 신과 연결되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생각>을 집중해라. 그러면 삼위와 연결되어 <신의 생각>이 느껴지고, 들리고, 떠오른다.

18. 세상 생각, 자기 생각, 잡생각을 모두 초월하여 <생각>이 ‘첨단의 차원’에 들어가면, ‘자기가 목적인 존재자의 생각’에 도달하게 된다.

19. <생각>이 ‘신의 차원’에 도달해도 ‘자기 차원’에 맞춰서 ‘신의 생각’을 생각하게 된다.

20. <신의 생각의 차원>에 도달하여 성삼위께 물어보아라. 그러면 합당하게 깨닫게 하신다.

21. <공기와 바람>이 존재해도 ‘형체’가 없듯이, <인간의 생각>도 존재하지만 ‘형체’가 없다. 그러니 수시로 ‘내 생각이 있나?’ 하게 된다.

22. 숨을 쉬면 <공기>가 느껴지고, 움직이면 <바람>이 느껴진다. <생각>도 그러하다.

23. <생각>은 ‘육신의 지체’를 쓰고서 원하는 것을 행한다.

24. <생각>이 ‘글’을 쓰고 나타나서, <생각의 실상>을 ‘글’로 남겨 놓는다.

25. <생각>이 ‘작품’을 쓰고 나타나서, <생각의 실상>을 ‘작품’으로 남겨 놓는다.

26. <생각>이 ‘말’을 쓰고 나타나서, <생각의 실상>을 ‘말’로 남겨 놓는다.

27. <생각>이 ‘육’을 쓰고 나타나서, <생각의 실상>을 ‘행실’로 남겨 놓는다.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28.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알고 연구하여 <생각>이 깊고 높으면 <신의 구상>을 받아서 ‘자기 육신’도 구원하고 ‘자기 혼과 영’도 구원하고 휴거시켜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

29. <생각>을 전능하신 성삼위와 일체 시켜 ‘신’이 되게 하여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신의 삶’을 살게 된다.

30. ‘생각이 신이 되었다’ 함은 ‘그만큼 생각이 빨리 돌아간다. 배로 빨리 돌아간다.’ 함이다.
31. 하루만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삼위의 생각>과 연결되어 집중해서 살아 보아라. 엄청나게 행하고, 엄청나게 얻는다.
32. <육신>이 1년, 10년 동안 스스로 생각해도 못 얻는 생각인데, 하루만 생각을 깊이 하여 <삼위>와 연결되어 생각해 보아라.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된다.
33.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연결되려면 불러라. 찾아라. 그 생각을 달라고 구해라. 애원해라. 간구해라.
34.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동안 행한 것’을 보고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면 주시기도 한다.
35.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 <큰 것>은 거의 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주셨다. 왜 주셨나? -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데 필요해서 주셨다.
36.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데 필요한 것이라도, ‘땅에서 쓰는 자’가 ‘조건’을 세워야 주신다.
37. 역사를 펴는 데 필요해서 주셨어도, 땅에서 쓰는 자가 조건을 세워서 주셨어도, ‘합당하게’ 쓰지 못하거나 ‘가치 있게’ 쓰지 못하거나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뺏기게 된다.
38. <자기 몸>이라도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병’으로 뺏기고 ‘사고’로 뺏기게 된다.
39. <생각의 차원>이 높고 <신의 생각>을 받은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보다 ‘생각’이 10배, 20배, 30배 더 빨리 돌아가서 10배, 20배, 30배 더 빨리 행하며 살게 된다.
40. 인간이고 동물이고 아무리 빨라도 ‘배’는 빠르지 않다. 그 빠른 치타도 다른 동물보다 ‘배’는 빠르지 않다. 조금 더 뛰어나게 빠를 뿐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아무리 남보다 앞질러 가더라도 ‘배’는 앞질러 가지 못한다.
41. <달리기>는 ‘빠른 자’와 ‘느린 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은 ‘빠른 자’와 ‘느린 자’의 차이가 엄청나다. 1년, 10년, 20년, 30년, 40년만큼의 차이가 있다.
42. 어떤 사람은 <생각>을 연구하고 높은 차원에 올라서 ‘신’과 연결되어 ‘신의 생각’을 받아 행하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전부터 세상 어느 누구보다 많이 알고 행한다. 어떤 사람은 먼저 알고 깨친 자가 가르쳐 주니 10년, 20년, 30년 후에 알고 행한다. <생각의 빠르기>는 수십 배, 수백 배 차이이다.
43. <생각>이 빠르면, <행동>도 두 배, 10배, 100배 빠르다.
44. 같은 돈이 있어도 <생각이 빠른 사람>은 5년, 10년, 20년 전에 땅을 사서 새 집을 짓고 사는데, <생각이 느린 사람>은 5년, 10년, 20년 후에야 생각하고 땅을 산다.
45.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러하다. <생각의 지혜를 받아 생각이 빠른 사람>은 10~4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여 역사를 세계적으로 해 놓는다. 그러나 <생각이 느린 자>는 10~40년이 지났는데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
46. 몰라서 가르쳐 줘도 <생각이 느린 사람>은 몇 년이 지난 후에나 행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하기도 한다.
47. 하나님은 땅에서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자를 쓰신다. 곧 ‘빠른 구름’을 타고 행하신다.
48. <생각>이 빨라지려면 기도해라. 삼위와 일체 되고 교통해라. 삼위의 생각을 배워라. 그리고 즉시 행하여라. 매일

그렇게 살아라.

49. <생각이 빠른 자>가 누구냐. 매일 삼위와 일체 되어, 매일 쉬지 않고 삼위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며 사는 자다.
50. <생각이 빠른 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일 먼저 알게 된다. 곧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세상에 전하여 따르게 한다.
51. <생각이 빠른 자>가 ‘밭에 감춰진 보화’도 캐 간다.
52. <생각이 빠른 자>가 ‘산의 밤’도 먼저 주워 간다.
53.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자>가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편하게 산다.
54. <새 역사>도 ‘생각과 행동이 빠른 자의 것’이다.
55. <생각과 행동이 빠른 자>가 ‘주인’이 된다.
56. <생각>은 ‘빛’보다 수백조 배 빠르다. 신과 일체 되고 연결되어 매일 신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생각을 쓰면, 엄청난 것을 얻는다.
57. <몸>도 <생각>도 안 쓰면 제자리다. 평범한 삶이다. 놀리지 말아라. 써라. 합당하게, 가치 있게, 지혜롭게 써라.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 2015년 9월 27일 주일말씀을 보면서 뽑은 잠언을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새벽에 전해 주겠습니다.

1.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의 전쟁’을 틀어 ‘평화’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 맞게 되었으니,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야 될 명절이다.
2. 올해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한국과 북한의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서로 포를 쏘면서 서서히 ‘전쟁의 불’이 붙고 있었다. 이때 <시대 대표>가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이에 한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며 평화롭게 끝나도록 성삼위께서 이 민족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3. 먼저는 ‘시대 대표’가 하늘 앞에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게 하여 <영적인 문제> 풀게 하셨고, 그다음에 ‘두 나라의 사람들’이 땅에서 회담하여 <육적인 문제>를 풀게 하셨다.
4. 하나님이 이같이 해 주지 않으셨으면 한국과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서 9월 말인 현재, 양국은 잿더미가 되어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추석 명절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겠느냐.
5. 하나님은 <전쟁>을 <평화>로 돌리도록, ‘시대 대표’가 책임지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다. 마치 방에서 ‘썩은 쓰레기 한 트럭’을 꺼내어 청소한 격이 되도록, 몸에 ‘암’이 막 퍼지고 있는데 암세포를 잘라 낸 격이 되도록 ‘한국과 북한의 죄’를 진정 회개하게 하셨다. <회개>는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슬피 울고 탄식하며 해야 된다.
6.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 줄 자’가 해야 된다. <민족의 죄>는 ‘시대 보낸 구원자’가 회개해야 된다.
7. 북한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응당한 행위’로 생각하니 <사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국도 북한도 민족이나 개인이나 <자기들이 행한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로 그 죄값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8. 한국도 북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한국은 일부만 믿고 북한은 안 믿으니 전쟁이 일어날 그 죄

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찢갚으로 '전쟁이 일어날 운명'에 걸려 있었다.

9. 한국과 북한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아서 감정이 달아올라 극에 치달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북한이 한국 쪽에 매설해 놓은 지뢰가 터져서 한국군이 크게 다쳤다. 북한은 '평화 협정을 어기고 우발적으로 행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이야기들까지 꺼내게 되었고, 한국과 북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국 <육적>으로도 '죄' 때문에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전쟁의 심판을 받게 될 시점이었다.

10. 개인도, 민족도, 육적 세계도, 영적 세계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된다.

11. 오직 <회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12. <죄>는 마치 '몸의 병'과 같다. 극한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을 피하려면 병을 고쳐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병을 고치고 수술하는 것이 '회개'다.

13.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펴시려고, <보낸 자>와 함께 '민족과 세계의 문제'를 의논하시고 해결하신다.

14.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으니, 모세를 통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뒤에서 이집트 마병대가 쫓고 있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와 의논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건너가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이집트 마병대는 모두 죽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5. <개인 싸움>도 격해지면 한 사람이 순간 못 참고 일어나서 때린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한동안 때리고, 운동한 긴장한 몸이면 상대를 걷어차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더 격해지면 무기를 사용하여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을 쏘기 시작한다. <민족 전쟁>도 그러하다. 감정이 격해지니 개인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듯 싸우는 격이다. 서로 죽지 않으려고 더 격한 행위를 한다. 그러나 칼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격하게 싸우다가는 둘 다 죽을 수도 있다. 혹여 한쪽이 살더라도 병신이 된다.

16. 전쟁하면 양쪽 다 손해다. 패전한 나라는 망하게 되고, 승전한 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17. 전쟁을 하면 생명 손실, 경제 손실이 크고, 전쟁으로 인한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동안 지어 놓는 건물과 도로가 다 파괴되고, 그동안 개발한 것들까지 모두 파괴되어 폐허가 된다. 작은 포탄 하나만 터져도 그곳은 폐허가 된다. 원자폭탄과 미사일은 하나만 터져도 그 지역이 다 파괴되고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죽는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빛만 봐도 눈이 멀고, 그 공기만 스쳐도 살이 썩어 들어간다. 또한 군인 한 명이 무장하면 민간인 수백 명씩 죽인다. 그런 군인들이 100만 명씩 출동하여 싸운다. 총알 한 방이면 목숨을 앗아 간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 같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 막아 주셨다. 감사해라. 성삼위께 영광을 돌려라.

18. 시대가 그러하니 <사람들의 생각>이 '무지'로 면역이 되어서 민족에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설마 전쟁이 날까?' 생각한다.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19. <한국과 북한이 하는 행위>로 봐서는 '전쟁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동안 버르고 버르다가 감정이 극에 치달은 상황이었다. 이때 하나님은 '다른 길'로 해결해 주셨다. 곧 '회개'였다. <회개>는 '민족의 죄를 알고, 전쟁의 운명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판국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시대 구원자'와 함께 행하셨다.

20.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자는 못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예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전쟁이 일어날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회개하게 하여 운명을 돌리게 하셨다.

21. <육적>으로는 이미 전쟁을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미 전쟁으로 가는 길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는 자가 하나님께 목매고 탄식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영적인 길>만 남아 있었다. 핵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민족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다.

22. 사람이 <몸>으로 치고받고 싸워도 핵심은 <마음과 생각>이다. <몸>으로 치고받고 싸울 때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 열이 식게 해 주면 <몸>도 열이 식게 된다. 이 길만이 싸움을 멈추게 한다. 이와 같이 민족의 상황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육적인 문제>도 해결됐다.

23.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함께 행하셨고, 보낸 자와 함께 행하셨다. 이것을 100% 믿고, 전쟁을 멈추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삼위를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 그러면 매일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기고 극적으로 휴거를 완성할 것이다. <휴거>를 완성해라. 전쟁을 돌려 막아 주었으니, 평화로울 때 어서 <휴거>를 완성해라.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 일>을 깨달으면, 그 일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믿기에 매일 신앙의 잔치를 하며,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

25. 삼위일체가 보낸 자와 함께 행했어도 모르면 '휴거 신앙'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화되기 어렵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 일>을 듣고 깨닫고 뇌에 채우고,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삼위를 깨닫고 휴거 신앙을 하라고 <성삼위가 보낸 자와 함께 하신 일>을 계시로 전한다.

27. <사람의 뇌>는 그때만 알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다.

28.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여 해 달라고 할 때'는 애간장을 태우며 빈다. 그때는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희망을 가지고 입이 닳도록 말하며 기다리고 소원한다. 그러다가 해 주면, '해 달라고 애간장 태우며 빌 때'의 마음과 행실이 변한다. 그러다 두세 달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서, 누가 그것을 증거하며 이야기해도 잘 모른다. 그러다 마치 꿈같이 희미하게 생각을 떠올린다.

29. <삼위일체가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 일>을 매일 이야기해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정해 놓고 기념하면서, 해 주신 성삼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라.

<2015년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30. 전지전능하신 성삼위만이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신다.

31. <2015년 하계 수련회>는 원래 대학부가 1박 2일 수련회를 원했지만 하루만 하고 끝내게 했다. 그리고 8월 8일 중등부 수련회는 말씀 시간을 오후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뒤로 옮겨 더위를 피하게 했다. 그리고 원래는 8월 15일에 장년부 수련회를 하고 8월 22일에 가정국 수련회를 하려다가, 갑자기 날짜를 변경하여 8월 14일에는 장년부 수련회를, 8월 15일에는 가정국 수련회를 했다. 8월 15일은 한국 광복절로, 그동안 수련회에 참석 못 한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게 했다.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니 버스 예약도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었다. 장년부 500여 명은 8월 14일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여, 8월 15일에 참석하게 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랐다.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돌아갔다. 후에 알고 보니, 만일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날이 8월 22일이었다. 만일 예정대로 22일에 가정국 수련회를 했다면, 그런 날 누가 마음 편히 수련회 잔치를 하겠느냐.

32. 날짜를 변경함으로 8월 15일 가정국 및 전체 수련회를 끝으로, 하계 수련회를 일주일 일찍 끝내고, <특별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8월 20일부터 국방 문제가 악화되었고, 북한이 '한국이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8월 22일에 군사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선포한 후부터, 한국과 북한은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북한은 전방 지역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잠수함 50여 척을 기동하고, 특수부대까지 전방에 배치하는 등 북한의 지도자가 한 마디만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33. 이때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막고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를 지게 했기에, 그로 인해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기도했다. 또한 3.16에 성자가 떠나시면서 “이 민족에 환난이 있으니 기도해라.” 하셨기에 “이때구나!” 하고, 더욱 극히 기도했다. 일문일답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섭리해 오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이때 전쟁이 나면 지구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성삼위와 구원의 사명자가 최고로 손해가 된다고 기도하며, 그러니 전쟁을 막아 달라고 간구했다. 이미 육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양쪽 다 포를 쏘는 등 긴장이 격화된 상태였기에,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며 목매어 기도했다.

34.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나 여호와가 전쟁을 원하겠느냐. 6000년 동안 역사를 펴 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때인데, 지금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를 제대로 못 펴니 얼마나 손해겠느냐. 지금 북한이 한국에게 먼저 해를 준 것으로 인해 싸움을 하고 있듯이, 한국과 북한이 ‘나 여호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된다. 개인도 민족도 ‘죄’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 죄는 꼭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 얹힌 문제도, 땅에 얹힌 문제도 해결해 준다.” 하셨다. 이에 한국의 죄, 북한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했다. 양측은 ‘응당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야 ‘죄’인지 아는데, 북한은 안 믿으니 죄로 생각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다. 한국도 ‘민족의 죄’로 인해 북한과 싸우다가 심판으로 전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진정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개인들과 민족이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아는 자가 회개하여 내게 용서받고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한다.” 하셨다.

35. 이에 아는 자가 진정 회개했다. 정치와 종교의 부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종교를 섬기는 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핍박하고 화평하지 못한 죄, 살인과 폭력, 국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죄, 공의롭지 못한 재판 등 ‘각종 죄들’이 산과 같이 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개인과 민족의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알고 간구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살인적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 ‘북한의 죄’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회개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같이 죽는 줄 모르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무지함도 회개했다.

36. 8월 23일에도 오후까지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었다. 이에 성령님은 “개인이고 민족이고 ‘상징자’가 대표로 회개하면 전제가 회개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간구하기를 “하나님,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실수하지 않는다. 걱정 말아라.” 하셨다.

37. 그날 밤 꿈에 계시해 주셨다. <동생과 형>이 있는데 각각 따로 살고 있었다. <동생>이 전날에 형의 집에 갔을 때만 해도 <형>이 살아 있었는데, 방금 전에 다시 가 보니 <형>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며, <동생>은 태연하게 좋아하면서 내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형의 시체>가 관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있는 것이 보였다. 방금 죽었기에 꼭 잠자는 사람처럼 보였다. 성령님이 이 꿈 계시를 깨닫게 하시어, ‘이 꿈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죽은 시체같이 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시대 대표의 회개를 받으시고, 양측을 대표하여 조건을 세우고 회개한 자에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비밀’을 제일 먼저 보여 주셨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으로 각각 ‘악 편과 선 편’을 상징한다. <북한>은 ‘형 가인과 에서를 상징한 악 편’이고, <한국>은 ‘동생 아벨과 야곱을 상징한 선 편’이다.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어야 일순간에 죽는다. 북한 문제가 그같이 일순간에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셨고, 옛것은 장사 지낸 바 되듯이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대표가 회개하니,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 주신 것이다.

38. 시대 대표가 회개하니 한국과 북한은 회담을 시작했고, 8월 4일에 북한의 지뢰 도발이 일어난 후 딱 21일 만인 8월 25일에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했으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이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한 뒤, 바로 아니라고 하며 말을 뒤바꿨다. 역시 협상이 타결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다. 회담 때 순간 북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도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 계속 군사적 긴장 상태가 연속되고 감정이 폭발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대 대표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순간 상황을 틀어 전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39. 회개함으로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어 한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

게 하였고, 평화로 끝나게 하셨다.

40.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에 걸리면, 그럭저럭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 깨끗이 회개하여 해결해야 된다. 먼저 땅에서 회개함으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 주신다.

41. 하나님은 호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받으신다. 이 시대 대표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회개해 왔고, 최근에도 계속 쉬지 않고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42. 육적인 것만 보는 자는 <육적인 것>만 보고 회답으로 문제가 풀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것>을 안 풀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잠언을 다시 보고, 이렇게 남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증거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의 것>을 못 보면, 시대 대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일을 하여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을 모른다.

43. 세상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44.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러 올 때도 그러했다. 사탄이 <영적인 것>을 막으니 못 풀다가, 다니엘이 간절히 간구하여 <영적인 문제>가 풀리니 천사가 다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 주었고 ‘당세에 일어날 일들’도 말해 주었다.

45. 자기 인생 문제도 그러하다. 항상 성삼위 앞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라. 그래야 이어서 <육적인 문제>도 풀어진단다.

46. <영적 승리>는 <육적 승리>다.

47.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 <육>도 풀리는 것이다.

48.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안 풀려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영적 문제>가 안 풀리니 <땅의 남북한 회답>도 안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화>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100%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서 살려 줬으니, 누구든지 이를 깨닫고 생명을 구원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성삼위 앞에 감사하며 행해라.

49. 개인이나 민족이나 ‘죽음 직전’에서 살려 주면 별짓을 다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살려 주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한때가 가면 그 은혜를 잊고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다가 또 ‘죽음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50. 하늘 앞에 은혜를 입고 마음이 변하면, 그 행위대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

51. 죽음에서 살려 줬으면, 인생 사는 동안 성삼위를 사랑하고 성삼위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라. 그렇게 사는 자가 ‘개인의 것’도 ‘민족의 것’도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선생은 베트남전쟁 중에 나를 살려 주셨다고, 지금까지 45년이 넘도록 성삼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다. 그러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52. 죽음이나 어려움에서 구해 달라고 급절하게 애원할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삼위를 사랑하며 성삼위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신부다.

53. 성삼위와 구원자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변하면, 그로 인해 버림받게 된다. 하늘이 버린 자는 복직이 어렵다.

54. 자기가 삼위와 구원자를 버렸어도 삼위와 구원자가 안 버렸다면, 하늘 편에서 다시 불러와서 구원해 주신다.

55. <삼위일체가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사연을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더 빛나게 해 주신다.

56. <삼위가 성지 땅에 주신 것들>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연을 나누고, 더욱 성삼위를 사랑해라.

57. 성지 땅 자연성전이 1000년 동안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삼위일체가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선생은 감사 안 하는 날이 없다. 그런데 쓰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가치 있게 쓰게 해 주시고, 삼위와 구원자가 그 속에 숨은 비밀을 말해 주고, 영과 육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

58. <성지 땅>을 사는 데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세상과 사탄이 이미 알고 그 땅을 쥐고 있었기에 땅 사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20~30번씩 쫓아가서 설득했고, 계약하려다가도 깨지고 하여, 정말 어렵게 하나씩 샀다.

59. 애간장을 태우면서 성지 땅을 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지 땅을 개발했다. 그리고 섭리인들 모두 쓰라고 줬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 육에게도 영에게도 <감사의 세계, 휴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자와 구원자가 조건을 세워서 <300선 휴거>을 이루게 해 줬듯이, <성지 땅>도 구원자가 조건을 세워서 준 것이다. 몸이 살아 있는데도 시체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하늘의 신부들이라면 가치를 알고 진정 감사하면서 써라.

60. 그동안 <월명동 땅에 대해 나간 말씀, 사게 된 사연, 작업한 것> 등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증거하고 가르쳐 주어라.

61. <2015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민족의 상황>을 가르쳐 주었으니, 모두 증거하고 가르쳐 주어라.

<2015년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을 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을 순간만 놔둬도 수십 년이 가 버린다. 고로 <인간 입장>에서 급하게 다스려 인간을 바로바로 잡아 주신다.

2. 사탄과 마귀의 간교함은 ‘영적’으로 못 느끼면 전혀 못 느낀다.

3. 사탄과 마귀는 ‘영물’이다. 인간과 다르다.

4. 꿈에 보면, 자기 옆의 사람이라도 따라다니면서 방해할 때가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다. 머리에 뿔이 달린 것만 사탄과 마귀로 보지 말아라. 사탄과 마귀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다니면서 능글능글 은밀하게 다닌다.

5. <하늘 편 사람>과 <사탄 편 사람>이 있다. 어느 때는 <하늘 편 사람>이 행하려 하면, 사탄이 <사탄 편 사람>을 통해 방해해서 못 하게 한다. 이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 편 사람>을 통해 행하여 방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6.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편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면, 결국 못 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7. 파악하기 전에는 ‘신’이 될 수 없다.

8. 내 인식과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악하니 전혀 아니었다.

9. <파악>은 정확히 알게 하니 ‘신’이 되게 한다.

10. <확인>은 제대로 알게 하니 ‘신’이 되게 한다.

11.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아신다. 신혼골수까지 꿰뚫어 파악하고 아신다.
12. 확인하되, 완전히 알기까지 확인이다. - 1차원 확인은 보다 쉽다. 2차원 확인은 보다 어렵다. 3차원 확인은 더 어렵다.
13. <확인>은 할수록 유익이다. 1차원 유익, 2차원 유익, 3차원 유익이다.
14. 물건을 사도 더 알아보고 사기다. 모든 사건도 그러하다.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더 알아보고 결정하기다.
15. <생각>은 길이 없이 아무 데나 다 다닌다. 그래서 생시에 ‘육’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꿈에서도 ‘혼’이 별의별 생각을 하며 아무 데나 다 다닌다.
16. <생각>은 길 없이 아무 데나 다 다니니,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별의별 짓을 다 한다.
17. <생각>은 <생각>이 제재해야 된다.
18.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이 제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제재하여라.
19.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자가 있다. 이는 몰라서 그러하다.
20.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쉽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간구해라.
21. 그릇을 비워야 담기듯이, <자기 주관·자기 생각·자기중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22.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23.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25.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구상 인생들은 모두 다 내 살과 뼈와 같다.” 하셨다. 그러니 모두 귀한 자 대하듯 귀히 대해라.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는 ‘한 존재물’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본다.
2. <생각을 집중한 자>는 차원이 높아서 ‘핵’을 본다.
3. <육의 생각>을 넘어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다.
4. 한 존재물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는 원인은 그와 비슷한 형상과 모양을 넓게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이다.
5. 한 존재물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볼 줄 알면, <만물 계시>를 주실 때 각종으로 계시해 주신다.
6. <생각의 차원>이 높으면, 한 존재물을 다양하게 보면서 만물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

7. 존재물이 생긴 대로 계시하신다.

8. <월명동 지형>을 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대결작이다. 한 지역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인다.

9. <월명동 지형>을 보면, 그곳에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이 있다. 그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형상이 있으니, 깊이 높이 자세히 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 선연하게 보인다.

10. <월명동 지형>을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면서 자세히 보면, 생긴 대로 형상이 보인다. <사람 형상>도 있고, <별 형상>도 있고, <자궁 형상>도 있고, <생명나무 형상>도 있고, <호수 형상>도 있다. 또 풍수지리 학자들이 최고의 명당으로 보는 <자미원 형상>도 있다. 또한 '산 능선'이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주름이 접힌 치맛자락>같이 빙빙 돌아가는 '빙애 길'도 있다. 참조: '빙애'→벼랑, 절벽의 의미로 산허리 절벽 길을 의미함. 또 <여자가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 있는 형상> 등 사람이 각종 자세로 있는 모습이 '여덟 개'나 있다. 월명동 지형을 크게 보고, 축소해서 보고, 잘라서 봐야 그 형상들이 다 보인다. 미술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못 본다. <영의 생각>으로 봐야 보인다.

11. 기도하면서 영계에 들어가서 월명동 지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었다. 몇 달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듣고, 월명동 지형을 찍은 항공사진을 가져다 보면서 그 형상과 모양을 배웠다. 그러고 나서 보니, <여인의 모습 여덟 가지 형상>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 밖의 형상>이 더 보였다. 사람의 지체도 하나로 보면 '한 형상'이고, 지체를 나눠서 보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인다. 월명동도 그렇게 하나로 보기도 하고 쪼개서 보기도 해야 '여러 가지 형상'이 보인다.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보면 이 형상이 보이고, 두 방향을 합쳐서 보면 저 형상이 보이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크게 보면 큰 형상이 보인다.

12. 백화점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하나님은 백화점같이 여러 가지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취향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13. 자기 철학이다. 자기 취향이다.

14.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고 '자기 취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상대'로 삼고 좋아하며 산다.

15. <자연의 형상>은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그 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자 형상>이라고 해서 '여자와 똑같이 생긴 모양'을 보려면 못 본다. '여자와 비슷한 형상'으로 봐야 된다. 월명동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월명동 지형>에 대해서 배운 후에, '영적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꼭 해 달라고 졸랐다. 이때 해 주신 말씀이다. (16번 잠언)

16. <월명동 지형>을 '다양한 모양'으로 보듯이, <삼위일체>도 '여러 가지'로 보고 대하여라. 전능자로 보기도 하고, 부모로 보기도 하고, 평생 사랑할 애인으로 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같이 대하기도 하여라.

17. 배고플 때 허리끈을 졸라매듯, 말씀에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졸라 대야 '그 센터의 침단의 말씀'을 주신다. - 그 말씀 하나를 받으려고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한 세월이 간다.

<2015년 10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몸>도 <지체>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해지고, 뻣뻣해지고, 굳어 버리고, 저리고 아프다. <뇌의 생각>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해지고, 굳어 버리고, 잡생각에 의해 아프게 된다.

2. 감동됐을 때 행해라. 생각났을 때 기록하고 실천해라.

3. 왜 저들은 ‘뛰어도’ 힘들기만 하고 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뛰는 만큼’ 전진하겠느냐. - 저들은 앉아서 뛰고, 우리는 서서 뛰기 때문이다. (이 잠언 한 가지로 만 가지를 깨닫게 된다.)
4. <기록하는 것>은 ‘손에 옮겨주는 것’ 같아서 자기 것이 되느니라.
5. <행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자기 것이 되느니라.
6. <생각하는 것>은 ‘설계하는 것’ 같아서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7. <끝까지 행한 자>는 완성한 자다.
8. <가다가 마는 자>는 투자해 놓고 얻지 못하는 자다.
9. <불의를 선으로 알고 행하며 사는 자>는 갈수록 해를 받는 자다.
10. <다듬는 자>는 아름답게 하는 자다.
11. <고치는 자>는 보다 더 좋게 만드는 자다.
12. <새로 만드는 자>는 딴 세상을 창조하는 자다.
13. <옛것>에서는 ‘옛것’만 나온다.
14.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세상에서 못 살아 보고 죽는다.
15. 행해도 <구시대>에서 행하면 ‘구시대’를 면치 못한다. 하루를 행해도 <새 시대>에서 행해야 ‘새것’을 얻고 ‘새 시대의 삶’을 산다.
16. 젊을 때 <새 시대>로 전환하기 쉽고, 그 체질과 생각에 따라서 <변화>도 잘된다. 나이 들면 생각과 체질이 굳어서 새롭게 행해지지도 않고, <새 시대>도 <변화>도 싫어한다.
17. 나이 들면 소가 모는 수레 타기를 편하게 생각하지, 차 타는 것도 싫어한다.
18. 젊은 자들이 <새 시대>를 찾고 새롭게 간다. 나이 들면, 젊은이들의 손에 끌려가지 않으면 <새 시대>로 못 간다.
19. <새 시대>는 ‘새것’을 만들기 위해 행해야 된다.
20. <새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21. <옛 시대의 헌것>은 그냥 얻어진다.
22. <옛날에 쓰던 것>은 고물이라서 주워도 되고 그냥 얻어진다. 그러나 <새것>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된다. - <하나님의 새 역사>도 그러하고, <하루의 삶>도 그러하다.
23. <새것>은 ‘전기선 두 줄’이면 되는데, <옛것>은 ‘크고도 큰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
24. <새것>은 영적이고 <옛것>은 육적이다.
25. <일부>만 고치느니, <모두> 부수고 새로 지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면서 행해라.

26. 옛집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무너진다. 부수고 월명동같이 새롭게 만들어라. 힘들어도 새롭게 만들고 행해라.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존재하니, 평생 보람을 누리며 쓰게 된다.

27. <새것>을 만들어야 마음도 몸도 새롭다.

28. <일부만 행하는 것>은 '옛것을 증축하는 자'다.

29. <온전히 다 행하는 자>는 '새 집, 새것을 얻은 자'다.

<2015년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30. 생각났을 때 행하고 가는 자는 성공한 자요, 생각났는데도 미루고 가는 자는 다른 위치로 가는 자다.

31. 인생은 '매일 자기 삶의 운전'이다.

32. 화를 참으려면 10배나 힘들지만, 화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9배 쉽다. 죄도 불의한 행위도 그러하다.

33. <주관하고 다스린다> 함은 '자기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운전할 줄 안다.' 함이다. 이것을 못 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못한 자다.

34.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라. 자기 주관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간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라.

35. 인간의 뇌는 그냥 놔두면 '무기력한 생각'으로 걸어가고 달려간다.

36. <목적>을 두고 무엇을 만들고 환경을 개발하듯이, <목적>을 두고 '뇌 개발, 생각 개발'을 해라.

37. <생각>도 <몸>도 가만히 놔두면 얻는 것이 없고, 도리어 생각을 뺏기고 행동도 뺏기게 된다.

38. 생각하고 행하면서 얻기다.

39. <작은 것>을 통해 '큰 것'도 생각하고, <큰 것>을 통해 '작은 것'도 생각하자.

40. 지난날 얻은 것들을 보면, 얻으려고 하면서 행했기에 얻었다.

41. <해를 주는 자>는 '목적을 쫓는 자'를 쫓아다니지만, <유익을 얻는 자>는 '목적'을 쫓아다닌다.

42. 하나님은 <우주>도 스스로 운행하게 창조하셨고, <사람>도 스스로 운행하게 창조하셨다.

43. 하기 싫게 자기를 길들여 놓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좋고 '안 하는 것'이 편하다.

44. <길들여 놓았다> 함은 '그렇게 만들어 났다.' 함이다.

45. <일>만 빨리하려 하지 말고 <생각>을 빨리하고 행해라. 먼 길은 쉬어 가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져 결국 계속 쉬어야 된다.

46. 일을 빨리해 버리고 쉬려면 지쳐 버린다. 일하면서 조금씩 쉬는 자는 많이 쉬면서 행하니 지치지 않는다.

47. 혼자서 쉬는 자는 재미없게 조금 쉬고 일하고, 일하면서 주와 함께 쉬는 자는 재미있게 많이 쉬면서 일한다.
48. 글자 하나를 틀리게 써 놓고 안 고치면, 글자가 스스로 고쳐지느냐. 평생 안 고쳐진다. 작은 것 하나도 ‘손’이 가야 된다.
49.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마음과 손’이 안 가고는 되는 것이 없게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스스로 제 마음대로 되어 태양이 지구로 오고, 지구가 천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로 필요한 대로 ‘손’이 가서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50. <죄>나 <더러운 행위>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응을 느껴서 싫어한다. - 왜 계속 그 행위를 하면서 꺼림을 면치 못하고 꺼림칙하게 사느냐.
51. <뇌>를 잡고 살아라. <생각>을 잡고 살아라. 주관해라. 다스려라. 안 좋은 것은 잘라 버리고, 좋은 것은 행해라. - 이렇게 자기 인생,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확실히 쥐고 운전해라.

<2015년 10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52. <호기심>과 <실체>는 다르다.
53. 이성의 사랑도 <호기심>과 <실체>는 다르다.
54. 아기를 좋아하는 자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좋지만, 아기로 인해 얻는 것이 없다. (10대를 취하는 자들을 보고)
55. 인생은 크고 성장한 만큼 삶의 향기가 나고 멋있다.
56. <호기심>은 뇌의 자극에서 오지만, <실체>는 몸이 겪는 것이니 다르다.
57. <호기심으로 행한 것>과 <몸으로 겪는 것>은 다르다.
58. <관념>과 <실체>는 다르다. 어느 때는 ‘동쪽과 서쪽’과 같이 다르고, 어느 때는 ‘땅과 하늘’같이 다르다.
59. 그곳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 보니 모래사막이었다. 거기서 헤매고 살아간다.
60. <관념>은 ‘생각’에서 즐기고 기뻐하지만, <실체>는 ‘몸’으로 겪으면서 얻기에 다르다.
61. <생각>으로는 즐거운데, <실체>로 행하면 슬프고 고통스럽다.
62. <자기 생각, 착각> 속에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의 세계에 가 보면 딴 세계다. <영의 세계>는 실체 세계다. <자기가 생각한 세계>는 근거도 없고 흔적도 없다.
63. 어떤 사람은 대낮에 “저기에 집이 있다.” 하며 뛰어갔다. 따라가 보니, 집으로 보였지만 실체는 가시덤불이었다. 자기 착각으로 뛰어간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고 있었다.
64. 우상을 섬기면서 “죽으면 좋은 세상에 간다.” 하고 믿고 살던 자들이 실제로 영계에 가 보면, 좋은 세상에서 한 평도 거할 곳이 없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65. 좋은 세상, 천국은 자기가 세상에서 욕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영이 변화를 이루고, 그 영을 가지고 가는 세계다.

66.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던 자가 간 곳을 고스란히 쫓아간다.
67. 목적대로 '세상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따라간다.
68. <영의 세계>는 자기 주관과 생각대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존재하는 세계다.
69. <육의 세상의 것>도 생각한 것을 확인하고 행하고 가다. <영의 세상의 것>도 생각한 것을 확인하고 행하고 가다.
70. 확인하지 않고 행하는 자는 '꿈에 잠시 보인 세계'를 현실에서 찾는 자같이 허망한 것을 좇는 자다.
71. 천 리 길이나 가야 하는 친구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게 해 주려 했다. 막상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었고, '여행'이라는 글자만 대문에 붙어 있었다. 자기 생각만 성취하려고 확인 안 하고 갔더니, 이것저것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72. <자기 목적>을 실행하려는데,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일 때가 있다. 삶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 곤란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행해라.
73. 하나님께도 확인하고 행하여라.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해 주시겠어요?" 약속하고 확인하고 행해라.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74. 간구해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그때마다 해당되는 것을 알려 주신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만물로, 꿈으로, 사람을 통해 알려 주신다.

<2015년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이 행한 것>이 '자기 영'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
2. <육신>이 '자기 육'을 위해 지구만큼 행했어도, <육신이 행한 것>이 '자기 영'에게 가지 않으면 구원도 휴거도 없고, 육신이 죽으면 육에게 실오라기만큼도 남는 것이 없다.
3. <육신>이 '자기 영'을 위해 행하면, <육신이 행한 것>이 '자기 영'에게 가서 '영'을 변화시킨다. 그리함으로 '그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된다.
4. 무엇이든지 '얻은 것'이라도 결국 사라진다면 허무하고, '가진 것'이 있어 누리고 살아도 결국 사라진다면 꿈속에서 한순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다.
5. <꿈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생시에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현실감 있고 좋겠느냐. <꿈>에 좋은 집에서 멋진 상대와 사랑했다 하자. 꿈에서 깨면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생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생 간다.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은 '꿈결' 같고,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체'와 같다.
6. 어떻게 해야 '영'이 가질 수 있겠느냐. <육>이 '자기 영'을 위해 행해 줘야 된다.
7. <육의 인생 100년>이 길다 하느냐. <영원한 영의 세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이다. 인생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누려도 꿈결 같고, 뜬구름 같아서 가다가 사라진다.
8. 어느 날 순간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멋있는 사람 형체'로 떠 있었다. 마침 펜과 종이가 있어서 그 구름의 형체를 그렸다. 그런데 그리고 있는 중에 '그리고 있는 부분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다. 구름이 마치 바윗덩이같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구름이라서 순간 사라졌다. 잘 그리려고 했는데 순간 사

라지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구름은 기다려 주지 않고, 그나마 남아 있는 형체까지 스르르 사라졌다. 겨우 그리기는 했다. 구름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다. 바로 ‘자연계시’였다. 첫 번째는 “팔방미인도 이같이 사라진다. 빨리 전도해라. 어서 시대 말씀을 가르쳐라. 구원해라.” 하고 깨닫게 하셨다. 두 번째는 “너에게 오는 기회도 저렇게 순간 사라지니, 번개처럼 행해라. 하늘이 주시는 계시도 순간 지나간다.” 하고 깨닫게 하셨다. 세 번째는 “순간 사랑하는 자를 보여 준 것이다.” 하는 계시였다.

9. <자연 만물 계시>는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또렷한가.’보다, ‘만물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만물>은 ‘하나의 비유’다. <비유>를 통해 ‘실체’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 <만물의 형체>가 슬쩍 보여도 그것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 <만물의 형체>보다는 <계시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가령 옆의 여자를 보고 “토끼 같다.” 했다 하자. 그 여자가 뭐 그리 토끼같이 생겼겠느냐. 그 여자에게 ‘토끼의 형체’는 없다. 그러나 그 여자가 ‘쫓기는 토끼, 겁 많은 토끼’로 느껴지면 “토끼 같다.” 말한다. <형체>보다, 느끼고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에는 ‘특히 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계시’가 있다. 그것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로 알면 된다.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만 ‘어떤 만물’을 보고 강하게 느끼게 하며 계시해 주신다. <형체>가 슬쩍 보이더라도 <전해 주는 계시의 내용>이 크다. 가령 <호랑이 형체의 구름>이 슬쩍 스쳐 지나가도, 자세히 보면 그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처지’에 있으니, 본인만 강하게 느끼면서 “호랑이같이 담대하라 하는 구나.” 하고 깨닫는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해야 된다. <자기 의지>로 계시를 받지 않으려면, 깊이 기도해라.

11. 어떤 만물을 보여 주면서 계시해 줘야 하는데, 환경상 그 만물이 없으면, 그 만물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하신다.

<2015년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해가 동쪽에서 떠서 종일 세상을 비추며 돕듯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도우신다.
2.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각자의 책임’이다.
3.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유, 자기 책임’에 두었다.
4. 믿고 안 믿고는 ‘자유 의지’인데, 그 차이는 엄청나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영원한 차이다.
5. <하나님이 보낸 자>는 안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인정하고 사는 자들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을 인정하는 백성’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의 말>을 듣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면서 사는 자들로서 <육>이 땅에서 살 때 ‘육의 행실’로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면서 같이 먹고 즐기며 지상천국을 이루며 살고, ‘그 영’도 천국에 간다.
6.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
7.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구원’을 근본적으로 이루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 ‘천국’에 가게 된다.
8. 그냥 왕만 믿고 사는 자는 그 나라의 기본적인 혜택만 본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9. <충성자>도 변하면, ‘악인’ 된다.
10. <악인>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의인’ 된다.

11. <열심히 했던 자>도 루시퍼같이 변하면, 쫓겨난다.

12. 과거와 현재에 <충성하며 열심히 했던 자>도 변하면, 변질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권’을 떠나게 되고 ‘사망의 생명’이 된다.

13. <싱싱한 과일>도 잘못 관리하면 변하여 썩는다.

14. <잘하던 자>도 변하면, 바로 맛이 가서 신앙이 썩게 된다.

15. <과거>에 못 해서 점점 변하여 신앙이 변질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변해서 변질되어 썩기도 한다.

16. 어제까지 ‘이성’에 있어 멀쩡했던 자도 하루 저녁 사이에 타락하여 ‘마음과 생각과 몸’이 변해 버리기도 한다.

17. 변하면 썩는다.

18. ‘왜 그런 자가 변했지?’ 생각하지 말아라. <싱싱했던 자>라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일순간에 ‘죄인’ 된다.

19.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그 형상이 ‘순간’ 변하지 않느냐. <사람의 선악 간의 마음과 행실>도 그러하다.

20. 자기가 변질되지 않도록 매일 ‘자기 생각과 행실’을 다스려라.

21.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아라. ‘생각’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여 그리되었다.

22. 음식이나 과일이 변할 때는 ‘색’이 달라진다. ‘맛’이 달라진다.

23. 자기는 안 변했다고 하나, 변하지 않은 자가 보면 확실히 안다.

24.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변하지 않은 자다. 말씀대로 못 한 만큼 변한 것이다.

25. 변하지 않게 하려면, 목숨 걸고 관리해라.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26. <충성했던 자>도 <잘했던 자>도 변한다. 왜일까? 평소에 ‘형식 신앙’을 하다가 서서히 조금씩 변했기 때문이다. 고로 한마음으로 끝까지 행하기다.

27. <육의 생각과 행실>이 변하면, 하늘에서도 변한 대로 된다.

28. 완전하게 행한 것은 완전하게 된다.

29. 거짓된 자들은 거짓되게 변해 있다. 겉으로 보면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그 ‘영’은 ‘자기 육의 행위’대로 변해 있고, 그에 해당되는 위치에 가 있다.

30. 자기가 할 일을 안 해 놓고서 누가 물으면 했다고 한다고 해서, 안 한 일이 되어 있겠느냐. 영계는 ‘자기 행위’대로 되어 있다.

31. <행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만 희망이 있지, 실상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

32. <휴거>도 ‘실체’다. <육>으로 행하여 ‘영계의 실체’를 만든다. 자기가 행했기에 ‘휴거’를 확신하는 것이다.
33. <행하지 않은 자>는 모두 ‘생각과 망상’에서 끝나고, ‘실체’는 없다.
34. 가령 어떤 사람이 있는데, 육신이 죽었는지 모르고 잘 살라고 기도해 줬다고 하자. 헛수고를 한 것이다.
35. 변해 버려 사과 썩듯 끝난 자들을 놓고 기도해도, 썩은 사과는 다시 복직이 안 된다.
36. <자기 인생>은 ‘하나’다. 그 하나의 인생이 썩으면, ‘육신’은 그대로 끝난다. <육신>은 찢값으로 끝나고, 그 <영>은 영의 세계에서 딱 한 번 기회가 있는 자도 있고, 육신이 끝날 때 영원히 기회 없이 끝나는 자도 있다.
37. 하나님과 주가 100% 기회를 줬으나, 자기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사망으로 간 것이다.
38. 자신이 알면서도 안 해서 사망으로 간 것이다.
39. 자신이 할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 행하지 않아서 사망으로 간 것이다.
40. 자기가 못 했는데 남 탓만 하면서 살다가 사망으로 간 것이다.
41. 이미 <변질된 자> 대신 <후자>를 찾아서 세웠다.
42. 항상 ‘둘 중의 하나’다. 분별의 지혜다.
43. 성경 역사를 보면 ‘변한 자와 안 변한 자의 역사’다. <변한 자>는 악인 편 가인이 되어 사망으로 갔다.
44. 사탄이 붙으면 변질된다.
45. 싱싱한 과일을 썩은 과일과 함께 두면, 같이 썩게 된다. 또한 과일의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두면, 나머지 부분도 썩게 된다. - 고로 빨리 쪼개 내고 씻어 내기다. 곧 죄를 회개하기다.
46. 섭리사에서도 그러하다. ‘썩어서’ 쪼개낸 것이다.
47. 조금씩 썩어 들어올 때 어서 씻어 내고 회개하고 고쳐라.
48. 꿈에 내 뼈를 분해해서 보니 조금 썩는 것이 보여 손으로 닦았다. 무슨 계시인가 하고 생시에 보니, 배가 아파서 설사를 했다. 이것이구나! 성자가 가르쳐 주신 대로 장을 세척하니, 즉시 나았다. 영적으로는 무슨 계시인가 보니,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보여 주시며 “그 여자는 이성으로 속이 썩고 있다. 그런데 편지로는 거짓말을 하며 너를 속이고 있다.” 하셨다. 왜 이제 깨닫게 하냐고 물으니, “미련 없이 끝까지 참아 주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셨다. 끝까지 참아 주면서 기회를 줘야 미련이 없고, 하늘 편 구원자가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안 듣게 된다. 하나님도 100% 참아 주고 긍휼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이 되어 결국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끝난다. 고로 하나님을 따라서 주를 따라서 ‘끝까지 하기’다.
49. 변질됐을 때는 ‘과거에 열심히 한 것’이 소용없다. 변질되어 썩어 버렸으니, 썩은 생각을 하고 썩은 행위를 한다. 그때부터는 하늘을 떠나 자기를 중심하여 행하고, 사탄과 인사탄의 꾀를 받고 행한다.
50. 사탄과 인사탄의 꾀를 받고 변질된 자는 사탄과 인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고 같이 지옥으로 간다.

51. 둘 중의 하나다. 끝까지 ‘온전한 것’을 분별하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변질되지 말아라.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전날 밤, 늦게까지 서류 정리를 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늦어졌다. 늦었지만 기어코 행하여 기도하고 잠언을 받아서 썼다. 기어코 행하니, 3시간 만에 잠언 계시를 주셨다. (오늘 새벽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 잠언을 나눠서 전해 주겠습니다.)

1. 사람이 작고 크게 할 일을 놓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은 ‘백지장 차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행하고자 생각하면 행하게 된다. 고로 누가 ‘조금’만 도와줘도 안 할 자가 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조금’만 더 하고자 하는 쪽으로 생각을 기울이면 행하게 된다.

2. <매일 행한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보아라. 행한 것은 얻었고, 못 한 것은 못 얻었다. 그러나 <한다는 생각>과 <안 한다는 생각>의 차이는 ‘조금’이다.

3. <행하는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다.

4. <행하는 자>가 행하는 만큼 생명력 있게 살아 있게 된다.

5. <최고 극으로 행하는 자>와 <보통으로 행하는 자>와 <최하로 행하는 자>와 <아예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하다. 믿음, 사랑, 전도, 생명 관리, 말씀, 강의, 새벽 기도, 하늘과의 교통, 편지 등 수십 가지가 있는데, 위의 네 가지로 분류되어 신앙생활을 한다.

6. 보통 행해서는 하다가, 안 하다가 한다.

7. <중한 일>은 ‘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8. <행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다. 행하지 않았는데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하여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적다.

9. <제때> 해야 ‘제때 얻을 것’을 얻는다.

10. 행하지 않으면 그때를 굶고 살고, 행하면 그때를 먹고 산다. 한두 끼 정도는 먹어도 안 먹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계속 안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11. 기어이 행하기다!

12. <어제 못 한 일, 오늘 못 한 일>은 남는 시간에 해라!

13. 창조주 하나님은 <행함으로 얻는 복>을 주신다. 그 복은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14. <악>을 행해도 받는데, 곧 ‘죄의 대가’다. 그 죄의 대가를 ‘하늘’로도 받고 ‘세상’으로도 받는다.

15. 게으르면, 자기 운명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뒤바꿔 놓는다.

16. 게으른 자는 망한다!

17. 게으른 자를 보니 ‘아름다운 얼굴과 몸의 형상’이 뒤바뀌어 있었다. 왜?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해서다. 미인을 보아라. 늘 관리하니 미인이다. 좋은 화장품만 쳐 바르고 몸만 가꾼다고 ‘아름다운 얼굴과 몸’이 되었겠느냐. <영적 관리>다. <영적 관리>를 해야 영의 세계에서 ‘미(美)’를 공급 받는다.

18. 육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빛난다!

19. <할 일>을 안 하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아라. 표가 나게 밍다. 정말 한번 보아라.

20. <할 일>을 하고, 자기 얼굴을 보면 땀땀하다. 보람된 얼굴이다. 행한 것에 대해 땀땀하고 보람된 반응이 얼굴로 나타난 것이다.

21.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자>는 자기 얼굴에 먹물을 바르고 다니는 자와 같아서 다닐 때마다 꺼림칙하다. 물로 씻어내듯 '행함'으로 씻어내라!

22. 자기가 행하지 않고서 '나는 왜 이러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서 축복을 안 주시지? 왜 나는 안 되지?' 한다. <기본 축복>은 자기가 행해야 주신다.

23.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가 행하여 축복을 받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그래서 '뇌, 생각, 몸'을 창조하셨다. 어서 '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몸'으로 행하여라. '뇌, 생각, 몸'을 써먹어라!

24. 모르니 표상자에게 배우고, 그를 따라서 하되 개성대로 하여라!

25. <행함의 시동>이 걸려서 행하다가 바로 '뇌의 시동, 생각의 시동'이 꺼져서 안 하는 자는 '약한 고물차 인생'이다. 고쳐라! 행해야 고쳐진다! 100% 행하면 100% 고쳐진다! 자기가 '자기 약한 고물차 인생'을 고치는 '기술자'다.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26. <행하는 자>은 '인간으로서 신'이다.

27. 해 버릇해라. 그러면 '찬란한 해'같이 빛난다.

28.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별'같이 된다. 별 세계는 별것 없는 세계다. 고로 '해'같이 빛나도록 행하여라!

29. 행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떠나신다.

30. 인간이 행하면 '성령이 도와야 될 책임'이 있기에, 행하면 성령께서 함께하신다.

31. 행하지 않고 삼위를 부르면, "왜?" 하고 대답만 하시는 삼위일체다. 행하면서 '행실'로 불러라!

32. <신이 이 세상에서 행할 때>는 그때마다 '육신'을 쓰고 행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 삼위는 애간장이 타서 '행하는 자'를 쓰고 해 버리시고,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떠나신다.

33.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자>를 보면 답답해서 같이 있지 못한다. 차라리 <행하는 개, 말, 양, 소, 토끼, 돼지, 닭>에게 가서 돕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랑도 해 준다.

34. 육이 어른이라도 게으르면, 부지런한 10대의 영들같이 빛나지 못한다.

35. <생각>이 날렵하게 날아야 <몸>도 가볍게 난다.

36. <몸>은 무게가 많이 나가나 적게 나가나 <생각의 엔진>을 돌리기에 따라서 가볍거나 무겁다.

37. 치타같이 날아라. 자꾸 속도를 내서 인생을 뛰어넘어 땅에서도 <생각과 육신>이 날고, 그래야 <혼과 영도> 더 난다.

38. 말씀을 아무리 해 줘도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않은 만큼 후회하게 된다.

39. 그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할 일>을 안 하니 거기 있는 ‘개미’도 물고 ‘해충’도 문다. 조금 더 있으면, 계절이 바뀌어 ‘뱀’이 나와서 물어 버린다.

40. 꿈에 자기 혼이 ‘세단’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도보’로 다니기도 한다. 이는 ‘현재 자기 신앙의 상태, 자기 마음과 행실의 상태’를 평가하는 계시다. <생각>을 날렵하게 하여 <몸>도 날면서 살아라. 그리함으로 꿈에 <자기 마음, 생각, 행실>이 ‘세단’이나 ‘비행기’로 보이게 만들어라.

41. <작은 승리>는 하기 쉽다. <작은 승리>를 이루어, 그로 인해 차원 높여 <큰 승리>를 해 봐라!

42. <자기 수준>대로 행하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만족해라!

43. 생각났을 때 행해라! 그때 그 생각은 ‘삼위’가 주신 것이다. 그때 안 하면 ‘삼위의 권세’를 땅에 떨어지게 한 것이 되어, 그 후에는 안 주신다. ‘조건’을 세워야 주신다.

4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행하는 자>에게 자꾸 주신다. 그로 인해 ‘사명자’가 되는 것이다.

45. <행하는 권세>를 잡아라! 만들어서 일으켜라!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 새벽잠언>

46. 사탄은 행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한다.

47. 하나님도 <행하는 자>를 보시고는 “안 줄 수가 없다! 행하니 주자!” 하신다. 고로 사탄은 <행하는 자>를 더욱 못 막는다.

48. <행하는 자>는 사탄을 이긴 것이다.

49. 사탄은 행악자들과 악평자들과 함께 나를 그리도 막고 방해했다. 그때마다 “사탄과 악평자들이 나를 막아도 내가 이기면 영원히 누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성삼위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산다.” 하고, 기어이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는 ‘한’이 있다. 내가 기어이 행하여, ‘하나님의 한’을 풀어 드러야지.” 하고, 요동 없이 기어이 행했다. 또 “<옳은 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자들’에게 꺾이면, 나는 <진리>를 알면서도 못 행하여 ‘그들의 세계인 지옥’에 간다.” 생각하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행한다.” 하며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 때 예언해 놓으셨듯이 나도 예언해 놓고, 정녕코 나의 책임을 다하며 행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행하니, 천하가 굴복했다. <행한 자>는 사탄을 다스린다. <행한 자>는 땅을 자기 것으로 산 자와 같아서 ‘주인 행세’를 한다. 그와 일체 돼야 ‘같은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한다.

50. <행한 자>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래야 ‘사탄’도 굴복시킨다.

51. 자기가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사탄도 행악자도 악평자도 다 떠나간다. 하다가 안 하면, 사탄도 행악자도 악평자도 잠복하고 있다가 할 짓을 다 한다.

52.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서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지?’ 한다. 미련하고 가련한 인생이다.

53. <행하는 자>는 ‘자기 앞날’을 닦아 놓고 산다. 몰라서 안 하고, 배우지 않아서 못 하고, 알고도 안 한다.

54. <알고도 안 하는 자>는 게으른 자요, 정신과 생각이 썩은 자다.

55. 모르면 배워라! 배우고 알았으면 행해라!

56. 언제부터 행해야 되겠느냐? ‘오늘’부터 행해라!

57. <행한 자>는 물질도, 명예도, 신앙의 모든 것도, 쓸 것도 쌓아 놓고 먹고 쓰면서 산다. 그러나 <행하지 않은 자>는 구걸하는 삶을 산다.

58. <자기 차>가 있는데 ‘운전’하기 싫어서 천 리 길을 걸어서 간다. 중간쯤 가니 힘들어서 못 간다. 그제야 <자기 차>를 가지러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지옥 고생을 한다. 그래 놓고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침을 튀기며 불평불만을 한다.

59. <자기>가 ‘자기’를 괴롭힌다. ‘생각’을 잘하고 행하여라!

60. <자기 할 일, 자기 책임>을 안 해서 ‘옆 사람’을 괴롭히며 고통을 준다.

61.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당장 행하여라!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잔치하는데 ‘닭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느냐, ‘돼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느냐,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하느냐. 잔치 때는 푸짐함이 달라야 된다. <시대 잔치>도 그러하다.

2. <생일잔치>냐, <결혼 잔치>냐에 따라서 ‘그 기쁨과 사랑의 강도’가 다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3. 오는 자를 맞이하는 것도 그러하다. <구약의 종들>이 왔느냐, <신약의 자녀들>이 왔느냐, <성약의 신부들>이 왔느냐에 따라서 ‘맞이하는 기쁨과 사랑의 강도’가 다른 것이다.

4. 종이 주인을 맞았느냐, 자녀가 부모를 맞았느냐, 신부가 기다리던 신랑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사랑의 강도’가 다른 것이다.

5. 산에서 머루와 다래를 발견했느냐, 산에서 희귀종 돌을 발견했느냐, 산에 감춰져 있던 보물을 발견했느냐에 따라서 ‘발견자의 마음과 기쁨’이 다른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6. 미련한 자는 귀한 것을 발견해도 기쁨을 못 누리니, ‘발견한 보람’이 없다.

7.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가치가 크고 엄청나서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누리면 부분적으로밖에 못 누린다.

8. <큰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누리야 ‘그 영광과 가치와 보람’을 엄청나게 누린다.

9. <큰 보물>을 발견하고 혼자 보람을 누리면, 일부만 누린다. 월명동같이 청중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쓰면서 누리야 제값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누린다. -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누리야 천주적으로 만족하게 누린다.

10. <고속 열차>나 <비행기>는 한 명이나 몇 명만 사용하면 제대로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써야 그 가치가 빛난다.

11. <큰 것>은 하늘과 같이 써야 그 가치를 제대로 빛내면서 제대로 쓸 수 있다.
12. <시대 말씀>도 몇 명만 쓰면 가치가 빛나지 않는다. 민족적·세계적으로 쓰이도록 만방에 전하여 모두 믿고 따르게 해야 가치가 빛나고, 말씀이 아깝지 않다.
13. <큰 인물>은 가정적으로만 쓰이면 아깝다. 민족적·세계적으로 쓰여야 그 가치가 빛난다.
14. 저마다 아깝지 않게 섭리사에서 크게 귀히 쓰여라!
15. <세계적인 사람>인데 ‘민족적’으로 쓰이면, 아까운 것이다.
16. <큰 것>이나 <큰 자>는 ‘큰 데’ 쓰여야 합당하여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17. <월명동에 놓은 바위와 돌>도 ‘개인 정원’에 쓰이면 아깝고, 환경과 조화도 이루지 않는다.
18. <물건>도 <사람>도 ‘만든 대로’ 그에 해당되는 환경에 쓰인다.
19.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기대를 갖고 기다린다.
20. <지나간 것>은 아무리 커도 끝났으니, <앞날의 것>에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린다.
21. 사람들은 ‘아직 안 본 것’에 호기심을 갖고 생각을 돌린다.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 오늘 전하는 잠언과 내일 전할 잠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잠언입니다. 연결된 잠언은 다 들은 후, 연결해서 또 보기 바랍니다.

1. (성령님) 내가 ‘네 마음’을 통해 말하니, 네가 그같이 생각하는 것같이 생각된다.
2. (성령님)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차원>에 맞춰서 말하니, ‘나 성령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같다. 고로 내가 네 마음을 통해 말해 줘도 그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너의 생각’인지 모른다.
3. (성령님)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나 성령의 생각’을 맞춘다.
4. 성령님은 ‘각 사람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다.
5. <영계>에서 어떤 것을 보여 줄 때도 ‘육계에서 본 배경이나 사람들’을 ‘영적 현상’으로 보이면서 계시하고 깨닫게 하신다.
6. <사람>을 보이면서 ‘성령의 모양과 형상’을 깨닫게 하기도 하신다.
7. 성령이 <계시>를 해 줘도 ‘받는 자의 인식관’대로 줄 수밖에 없다. 가령 <산>을 ‘산’으로만 인식하고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전혀 인식을 못 하면, 계시를 해 줘도 모르고 눈으로 봐도 모른다. 인식대로 결정되어 있으니, 달리 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다.
8.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배우고 인식하고 있으니 달리 더 생각하지 않고, 육이 죽을 때까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고, 영계에 가서 영의 주관권에서도 그리 알고 기다린다.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아는 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그제야 그렇게는 재림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땅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보내어 재림역사를 펴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9. 모르고 사는 것같이 억울한 일도 없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는 자>에게 ‘그 차원보다 조금 높은 차원’으로 가르쳐 주어 더 알게 해 주신다.

11. 성경을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단 2:21)” 했다.

12. 100% 알고 보면, ‘지구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곧 <하나님이 이 시대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 생명의 길>이다.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3. 항상 ‘핵을 우선권으로 행하기’다.

14. <글씨>를 잘 쓰는 것보다 <내용>을 잘 쓰는 것이 핵이다.

15. 핵과 핵 일체다.

16. <1:1>은 ‘최첨단의 만남의 광장’이다.

17. <1:1>은 통한다.

18. <영과 영>은 통한다.

19. <혼과 혼>은 통한다.

20. <육과 육>은 통한다.

21. <생각과 생각>은 통한다.

22. 같은 육, 같은 생각, 같은 혼, 같은 영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통한다.

23. 입이 있어도 평생 말을 안 하면, 한 마디도 못 하고 죽는다.

24.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존재대로 행해 보아라!

25. <각각 육, 혼, 영>도 존재하고 있으니 존재대로 쓰고, <몸의 각 지체>도 존재대로 써라.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존재하시니, 불러 봐라. 말해 봐라. 언제까지? 통할 때까지다!

27. 사람끼리 ‘말’로 통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말’로 통하게 하셨다. 불러 보고, 물어보고, 네 사연을 말하 여라! 대답은 ‘네 마음과 뇌’로 온다.

28. 쉽게도 생각 말고, 어렵게도 생각 말고, 성삼위를 부르며 통해 봐라.

29. 삼위를 부르고 찾았을 때 <응답>은 ‘네가 잘 알아듣는 것’으로 해 주신다. 곧 ‘만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한다.

30. <사람>과도 말을 안 하면 멀어지고, <전능하신 신>과도 말을 안 하면 멀어진다.

31. 가까우면 좋다. 사랑하게 된다. 늘 본다. 느낀다.

32. 멀리 있으면 사랑해도 ‘일체 되는 사랑’은 못 한다.
33. <백지장 거리>를 놓고 운명이 좌우되는 사랑이다.
34. <거리 없이 맞닿은 사랑>이 ‘일체 된 사랑’이다.
35. 거리가 ‘백지장’만큼만 떨어져도, 주면 못 받는다.
36. 전깃줄이 ‘백지장’만큼만 거리가 떨어져 끊어져 있어도, 불이 안 들어온다.
37. <사랑의 거리>도 그러하다. 백지장만큼도 떨어지지 않은 ‘맞닿은 사랑, 일체 된 사랑’이다. 그래야 하나다.
38. <행한 자>만 ‘사랑의 불빛’에서 산다.
39. 삼위와 일체 돼야 <말씀의 불, 사랑의 불>이 들어온다.
40. 삼위와 하나 되면, 항상 삼위와 같이 있는 것이다.
41. <사랑 일체·말씀 일체·생각 일체·행실 일체> 되면, <육>은 ‘땅’에 있고 <영>은 ‘하늘’에 있어도 하나 되어 사는 삶이다.
42. 하나 되면, 어디 있어도 서로 합당하니 무엇이든 같이 행하게 된다.
43. 하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면, 각각 행해지는 것이 많다.
44.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때>는 ‘성삼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 이후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역사’를 하고 구원역사를 끝내신다.
45. <사랑·말씀·생각·행실이 삼위와 하나 된 자>는 누구든지 그 차원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이 되어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46. <사랑·말씀·생각·행실이 삼위와 하나 되지 않은 자>는 하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로서 삼위도 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47. 하나 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불렀을 때 통하여 느끼고 안다.
48. 하나 되면, 속여도 알고 참말을 해도 안다.
49. 하나 되지 않으면, 속여도 모르고 도와도 모른다.
50. 하나 되지 않으면, ‘생각의 차이’로 마음이 안 맞아서 다툰다.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2. 조금 더 하면, 문제가 답으로 뒤바뀐다.

3. 조금 더 하면, 판 세상이다.
4. <상을 얻는 자>와 <못 얻는 자>의 차이는 '조금의 차이'다.
5. <못하는 자>도 조금만 더 잘하면 <잘하는 자>와 같이 상도 받고 성공도 한다.
6. 자기 인식대로 말하지 말고, 해 보아라!
7.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인본주의'이고, 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신본주의'다.
8.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보아라.
9. (하나님) 나 여호와와는 무력으로 말을 꺾지 않는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인정하는 것만 해도 나는 너를 이긴다.
10. (하나님) 너는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의 차이가 '크다' 하지만, 나는 '작다'고 본다.
11. (하나님) 나 여호와가 얼마나 실수 없이 말을 잘하는지 배우고 깨달아라. 배우고 너도 그같이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귀히 쓸 것이다.
12. (하나님)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자>와 <은메달을 딴 자>의 차이는 많게는 '1m', 적게는 '한 뼘' 차이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잘하면 운명이 바뀐다. 나 여호와의 말이 실수 없는 말이 아니냐.
13. (하나님) <조금 위에 있는 자>는 '조금 앞'에 가니 쉽다. 조금 앞에 가면 앞에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4. (하나님) 하나의 사과나무에서 <제일 큰 사과 하나>를 따고, <그다음에 큰 사과 하나>를 따서 비교해 보아라. 눈으로는 그 차이를 모를 정도로 차이가 없다. 저울에 달아야 알 정도다. 사람도 그러하다.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비교해 보면 '백지장 차이'다. 그러니까 못하는 자는 조금만 더 잘하라는 것이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5. (하나님) 내 앞에는 누구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다. 제일 잘하는 자에게 금메달을 주고, 다른 자들은 뒤로 떨어뜨리는 경주가 아니다.
16. 목과 허리를 곧게 쭉 펴면 키 2cm가 좌우된다. 2cm만 커 보여도 엄청난다. 이같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쭉 펴고 행하면, 달라진다. 조금만 더 하라는 것은 목과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 정도다.
17. 조금만 더 행하면 변화되어 <휴거 차원>이 한 단계씩 올라간다. 300에서 400선으로, 400에서 500선으로, 500에서 600선으로, 600에서 700선으로 간다. 그 차이는 조금이지만, 실상은 엄청난다.
18.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행해야 더 희망 있다.
19. 막연하게 앞날에 <더 좋고 큰 것>이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조금 더 뛰고 더 열을 내면서 행해라! 그러면 앞날에 <더 큰 것>이 온다.
20. <영>이 '최고의 세계, 황금성'에 가는데, <육>도 '최고'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21. 국가의 운명도 '조금 더 행하는 데'서 좌우된다.
22. 조금 더 하면, '휴거 안 될 자'도 휴거된다.
23. 조금 더 하면, '죽을 자'도 산다.

24. (하나님) 너희가 많이 잘해서 운명이 좌우된다면, 기대도 많이 안 한다. 조금만 더 잘해도 좋게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잘하라고 말씀을 주면서 잘할 것을 기대한다.
25. 조금 더 하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보인다.
26. 눈·코·입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크면, 엄청나게 커 보인다.
27. <얼굴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차이가 큰 것 같아서 실제로 재 보니, <얼굴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양쪽 1cm'가 컸다. <얼굴이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양쪽 2cm'가 더 컸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로 엄청나게 크게 보였다.
28. 운동장도 넓이 90m, 폭 65m는 작아 보인다. 10m씩만 더 넓혀서 넓이 100m, 폭 75m가 되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국제 규격 정식 축구장'이 된다.
29. 산도 조금 더 높으면, 그 나라에서 최고로 크고 높은 산으로 본다. <신앙의 차원>도 조금 더 높으면 '크고 높아서 유명한 산'같이 칭하게 된다.
30. 조금 더 큰데 그리 크게 보이고, 조금 작는데 그리 작게 보인다. <신앙>도 그러하다.
31. 1cm는 '성인 손가락의 한 마디'도 안 된다. 그런데 옷이 자기 사이즈에서 1cm만 작아도 못 입고, 신발도 자기 사이즈에서 1cm만 작아도 못 신는다. 작은 차이인데 '운명'을 좌우시킨다.
32. 글씨를 써도 조금만 더 크게 쓰면 잘 보인다. 조금만 작게 쓰면 잘 안 보인다.
33. <신앙>도 차원이 조금 낮아지면,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탄 주관권으로 가게 된다. 특히 영계에 가서 보면 충격이다. 그것을 보고 오면, 잠도 밥도 다 내던지고 조금 더 하려고 열심히 행하게 된다.
34. 시장에서 과일을 살 때도 조금 더 크면, 바로 눈과 생각이 가서 눈에 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조금 더 크면, 그리 돋보인다.
35. 조금 더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36. 조금 더 안 해서 뒤에서 살고, 밟히며 살고, 얻을 것을 못 얻고 살고, 실망하며 살게 된다.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37. 조금 더 신경 쓰면 잘하고, 조금 덜 신경 쓰면 못한다.
38. <말>도 '조금 덜' 신경 쓰고 막 하다가 형제의 귀에 거슬리게 말하게 되어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39. 조금 더 해서 더 받고, 만족하게 누리고, 더 기뻐하며 산다.
40. 조금 덜 해서 못 얻고, 못 누리고,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
41. 기도·찬양·전도·관리도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상대도 자기도 그러하다.
42. 강의도 못 하는 자가 조금씩 노력하면, 조금씩 실력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잘하게 된다.

43. 본인이 열심히 행한 데서 조금 더 하면, ‘인간 한계선’까지 도달하게 된다.
44. <완전과 완성의 답>은 ‘조금 더 하기’다.
45. 어떻게 100%까지 하려 하느냐. 조금씩 더 하여 도달하기다.
46. <조금 더 잘하는 자>에게 사명을 줘라. <조금의 차이>이지만 ‘큰 차이’다.
47. <말과 행실>을 조금 더 잘하여 사람들이 잘 따르고, 조금 못하여 사람들이 안 따른다.
48. 그림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판 작품이 된다. 사진도 조금 더 크게 찍으면, 그 사진이 작게 찍은 사진보다 돋보인다.
49. 수백억짜리의 경매도 값을 조금 더 높이 쓴 자가 낙찰받는다.
50.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안 해 주냐?’ 한다. <조금 더 한 자>가 표가 나기 때문이다.
51. 어떤 자는 조금 더 걸어가서 강을 건너가서 살고 있고, 어떤 자는 조금 더 못 가서 강을 앞에 두고 ‘나는 언제 강을 건너 자처럼 될꼬?’ 한다.
52. 사람을 뽑을 때 대충 보고 뽑으니 <조금 더 한 자>를 못 찾고, 겉만 보고 <못 한 자>를 뽑게 된다.
53. 사람을 뽑을 때 <잘하는 자>도 뽑아서 쓰지만, <그보다 조금 못하는 자>도 뽑아서 써라. ‘조금의 차이’다. 시켰을 때, 본인이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하다 보면 잘하게 된다.
54. <조금 더 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55. <성공한 자>는 ‘조금 더 한 자’다.
56. 조금 더 안 하고 조금 편해서 뭐하려느냐. 조금 더 피곤해도 조금 더 해서 성공하여 다른 차원에서 누려라! 그러면 보람과 기쁨이다.
57. 새벽에도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자서 뭐하려느냐. <육>은 편해도 <영·혼·생각>은 하루 종일 쫓기고,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고달프고, 성삼위를 뵈면 면목도 없게 된다. 조금 더 하면, 하루 종일 꺼림 없이 성삼위를 대한다.
58. <조금 더 하여 받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
59. 조금 더 해서 ‘안 될 일’도 된다!
60. 어떤 영은 빛 쪽으로 10cm를 더 못 와서 ‘사망의 그늘’에 묻혀 있다. 조금 더 하면, ‘생명권’으로 확~ 나온다.
61. 빛 쪽으로 10cm를 더 못 와서, 사탄에서 목을 잡히고 허리춤을 잡혀서 끌려다닌다. 사탄이 “배설물 먹어!” 하면 먹어야 된다. <육>이 이를 알고 ‘조금 더’ 하여 사탄을 주관하고, 사탄을 부리고, 사탄에게 고통을 주어라!
62. 꿈에 자기 주위를 맴도는 자가 있다. 사탄이다. 자기를 지킨다고 좋게 대하지 말아라.
63. 5분만 기도해도 모기를 잡듯 사탄을 잡고 해결하는데, 왜 그 5분을 기도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하루 종일 사탄에서 쫓기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사탄에게 시달리느냐.

64. 매일 수시로 기도하여 사탄을 멀해라!

65. 어떤 자는 사탄이 ‘남자’나 ‘여자’를 쓰고 유혹하는데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깨끗하게 지켜 왔던 자기 몸’을 바친다. 그래 놓고 ‘내가 왜 미친 짓을 했지?’ 한다. 그 손해가 엄청나다. 사랑이 A급에서 B급이 되었다. 이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이다. <사랑>은 엄격하다! 하나님은 ‘사랑의 절대자’라서 <사랑>을 엄격하게 보신다.

66. <이성>을 이겨야 ‘그 센터의 사탄’을 이긴 것이다.

67. <몸> 주고 <주권> 뺏기고, 상대방에게 질질 끌려다닌다. 그리고 계속 속아서 산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또 속인다. 자기 죄를 가리려 함이다. 그러고도 성공하려는 야욕만 가지고 사느냐.

68. 아담과 하와가 못 한 <사랑의 조건>을 세워 줘야 ‘사랑 복직’ 된다. 이런 자가 ‘사탄을 멸한 자’다.

69. <사랑의 기준>을 세워야 ‘황금성’에 간다. 결국에는 ‘사랑’을 보신다. ‘사랑’이 완벽한지, 아닌지를 보신다.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창조 목적을 완성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다. 고로 <사랑의 기준>을 세우고 <사랑 복직>을 해야 ‘천국 황금성’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것 봐라! 내가 아담과 하와를 꺾어 내 뜻을 깨뜨렸지만, 결국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하신다.

70. <구시대>에서 못 세운 기준은 <새 시대>에서 세워야 된다. 그들보다 더 낮지 못하면, 결단코 ‘황금성’에 못 간다.

71. 700선까지 가는 휴거 과정에서 미끄럼틀만 타고 오르내리다가 끝나지 말아라! 어서 조금 더 행해라! 그러면 운명이 뒤바뀐다!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72. 입으로 건물이 지어지느냐. 행해야 건축된다. 황금성도 <말>로만 가지지 않는다. 행해야! 황금성에 자기 집이 건축되어 영이 황금성에 가게 된다.

73. 말로만 황금성에 간 자는 아예 없다. <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그 영>이 ‘하늘나라 형제’로 변화되어 가는 곳이 ‘황금성’이다.

74. 말씀을 행함으로 <생각>도 <행위>도 ‘하나님의 주권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주고받는다.

75. 섭리사를 그냥 따라가지 말고, 확실히 배워서 확실히 알고, 본인이 뛰면서 따라가라!

76. 누구에게나 ‘지금보다 조금 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도 안 한다. 현실과 미래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해라!

77. 절벽에서 자기 애인을 구하려는데 손이 안 닿으면 조금 더 뻗어라. 그러면 닿는다. 이와 같이 조금 더 해라!

78.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고로 눈으로만 보고 “못 하겠다!” 판단하지 말고, 행해 보아라!

79. 하늘의 별도 눈으로 볼 때는 작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별은 지구보다 몇만 배 더 크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

80. <자기 생각>과 <자기 영이 실제로 변화된 모습>은 다르다. <영>은 <자기 육이 그동안 행한 것>을 다 가지고 변화되어 있다. 완전히 변화된 영은 ‘신’과 같이 되어 있다.

81. 자기 혼으로 영계를 확인해라. 얼마든지 확인된다.

82. <추측>과 <실체>는 다르고, <사진>과 <실체>는 다르다.

83. <추측>만 하지 말고, <실체>가 더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고 해라. 무조건 하면 착오가 많다.

84. 사람은 자기 좋은 대로 추측하고 인식한다. 고로 좋게만 생각하면서 “내 영도 잘되겠지. 내가 바라는 것도 잘되겠지.” 한다. 그러다 <자기 생각>과 <실체>가 많이 다르니, 실망도 크고 실패하는 것도 많다.

85. <욕>이 많이 행해야 <영>이 더 많이 더 좋게 변화된다. 고로 다른 세상, 다른 위치로 간다.

86. 성령도 주의 영도 도와줄 것이 없는지 늘 쫓아다닌다. 고로 너희가 부르면서 말 좀 해 다오! 속 시원해 말 좀 해 다오!

87. 기다리던 <실체 시대>가 왔다. 고로 지금은 ‘실제로 행할 때’다.

88. 실제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조금만 더 하여라! 그러면 귀에 들리던 것이 눈에 보여 흥분되어, 거뜰히 하게 된다.

89. 깨달았을 때 해라! 그때 안 하면 기회 놓친다.

90. 조금 덜 하면 냄새만 맡고, 말로만 들린다.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눈으로 보이면서 힘이 확 온다. 그래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운명이 뒤바뀌게 된다.

91. 말소리만 들리던 라디오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TV를 만들어 눈에 보이게 했다. - 조금 더 하면 그리된다.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판 세상이 된다.

<2015년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한 가지는 잘된다.

2.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다른 것을 하면, 실수한다.

3. 한 가지에 집중하면 생각이 ‘집중하는 곳’에 다 가서, ‘다른 것’은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 눈으로 봐도 모르고 행한다.

4. 생각이 한 가지에 집중되면, ‘집중된 것’밖에 못 본다.

5. 운전을 집중해서 할 때, 판생각을 못 하는 격이다. 고로 다른 것은 집중이 안 되어서, 하면 실수하게 된다.

6. <깊고 높은 것>은 집중해서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7. <생각>은 ‘눈’과 같다.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려면, 한 번에 두 가지를 못 본다. 한 가지만 봐야 집중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다.

8. 생각이 집중되면 잡생각이 안 들고 판생각이 안 들어온다.

9. 생각이 집중되지 않으면 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이 생각나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다른 생각이 들면서 다른 형상이 보이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서 보인다.

10. 기도하다가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판생각이 난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환상같이 형상이 되어 보인다. 잡생각으로 인한 뇌의 현상이 많다.
11. 기도하다가 졸거나 의식이 몽롱해지면, 뇌가 자체 의식 단계에 들어가서 어떤 형상이 보인다.
12. 빨리만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도 행실도 착오가 많다.
13. 인간의 생각은 완벽하지 못하다. 아무리 글을 잘 써 났어도, 써 놓고 다시 보면 착오가 많다.
14. 집중해서 계속해야 '생각과 행실의 착오'가 덜하다. 글도 두 번, 세 번 계속 보면 첫 번째보다 더 온전하게 교정한다. 그만큼 생각을 집중하면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5. 사람은 '보는 것'도 착오가 많다. 방향에 따라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니, 본 형상과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고로 속는다. 그래서 누가 좋게 이야기하면 착시로 사기도 당한다. 착각으로 들리는 말이 많다. 그 말을 뇌에 그대로 입력하면, 잘못 행하게 된다.
16. <사랑>은 착시를 최고로 많이 일으킨다. 뇌를 흥분되게 하면, 짐승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의 행위를 한다.
17. <뇌>와 <생각>과 <눈>을 철저히 잡기다!
18. 만화책, 소설책, 음란물, 이성적 호기심들은 모두 '착시 현상'을 일으켜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킨다. 그러면 뇌에 시동이 걸려서 그대로 보이면서 행하게 된다.
19. 생각대로 눈에 보인다.
20. <실체>는 그렇지 않은데 좋아하고 사랑하면 <뇌>에서 좋게 느껴지고, <눈>에도 좋게 보인다.
21. 극적으로 사랑하면, 돼지도 여자 형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2. 돼지를 늘 예뻐하면, 예쁜 동물로 보인다. 형상은 돼지인데, 그 형상에서 더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다.
23. 뇌에서 생각한 대로 그 물체의 형상이 돋보이면서 좋게 보인다. 더 나아가 뇌가 흥분되면 극적으로 더 좋게 보인다.
24. 술에 취했을 때는 마음이 담대해지고 좋게 보인다. 알코올 성분이 뇌를 흥분시켰기 때문이다.
25. 평소에는 말을 거칠게 하던 자가 술에 취했을 때는 칭찬하고 웃으면서 대했다. 알고 보니, 술에 취해 흥분이 되어 그리한 것이다.
26. 사람끼리도 마음이 흥분되거나 기쁘면, 자기의 기쁜 마음으로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행동한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면 흥분이 가라앉아서 달리 대한다.
27. <생각>에 따라서 <몸>도 행하게 된다. 그리함으로 <육의 삶>이 좌우되고, 그로 인해 <영>이 변화되어 만들어져서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28. <생각>에 따라서 <휴거>가 좌우되고, <생각>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좌우된다.
29. <생각>이 변하면 <몸>도 변한다. <삶>도 변하고 <영>도 변한다.

30. 사탄도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생각>에 역사하여 '그릇된 관'을 넣어 준다. 그 관을 가지면, 결국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31. 사탄은 얼마든지 역사하여 인간의 생각에 '사탄의 악한 생각'을 넣어 줄 수 있다. 이를 알고 선악을 구분하고 사탄의 악한 생각을 물리쳐라!

32. <생각>이 잘못되면, '주'도 불신하게 된다. '인정하던 말씀'도 스스로 불신하게 된다.

33. 네 생각을 지켜라!

<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정말 귀한 것>임을 알면 반드시 산다. 돈이 모자라면 자기 옷이라도 벗어서 팔고, 부족한 돈에 보태어 귀한 것을 꼭 사서 알몸으로라도 가지고 온다.

2. <자기 일생을 두고 찾던 정말 귀한 것>임을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을 다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옷이라도 벗어서 다 팔아 그것을 보태서 꼭 귀한 것을 산다. 벗은 몸이라도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귀한 것>을 샀으니,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면서 좋아하며 기뻐 된다.

3.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거지같이 되었다. 시대가 주는 온갖 핍박을 받았고, 무지한 자들이 주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여 <나>는 '낮'을 차지했고, <모르는 자들>은 '어두운 밤'을 차지했다.

4.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개발할 때, 가진 소유를 다 팔아도 모자라서 입은 옷까지 다 팔아서 땅을 샀다. 그때 동네 사람들은 나를 비웃으며 창피를 주었다. "미친놈! 모자라네. 저 땅을 개발할 돈으로 넓은 도시에 나가서 살지.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간다. 저런 사람에게 땅이나 비싸게 팔자!" 했다. 그 바람에 사게 된 땅도 있다.

5.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미쳤다. 모자라다. 바보다." 한다. 그 말대로 정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6.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자>는 시대를 10년, 20년, 30년씩 앞서간다. 고로 현실에서 보면 '결과'를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미쳤다. 모자라다. 바보다." 한다. 그러다가 시대를 앞서가며 말한 대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시기 질투까지 하고, 투덜대며 흠을 잡고 악평까지 하게 된다.

7. <자기가 좋아하는 편>이 아니면 자기 뇌에서 '반대 작용'이 일어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자기 주관과 생각을 벗어난 것>은 부정하고 외면하고 배척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월명동>을 오늘날같이 개발하려고 하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월명동>을 오늘날같이 개발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9. 때가 되니 하나님은 사명자를 깨우쳐 주셨고, 점점 땅을 사면서 개발하게 하셨다.

10. 처음부터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월명동 땅을 모두 샀다면, 땅을 아주 헐하게 쉽게 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었어도 100% 이야기해 주지 않으셨다.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기도하여 알게 하셨다. 스스로 깨닫고 기도하여 절실히 깨달으니, 그제야 <귀한 것>을 알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서, 정성껏 귀하게 뜻있게 개발해 나갔다.

11. 미리 아는 것이 크다. 미리 행하는 것이 그리 크다.

12. <시대 말씀>도 그러하다.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면, 다 버리고 알몸으로라도 좋아하며 좇아 행한다.

13. <정말 귀한 것>임을 알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도 팔아서 보태서 산다. 그리고 알몸으로라도 가지고 간다.

14. 알면, 알몸으로라도 가지고 간다.

<2015년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5. 지혜는 ‘성자의 생각’이다.

16.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이다.

17. 지혜는 ‘누구에게나 사랑의 대상’이다.

18. 지혜는 ‘생각났을 때 기록하는 것’이다.

19. 지혜는 ‘생각났을 때 행하는 것’이다.

20. 지혜는 ‘줄 때 분별하고 받는 것’이다.

21. 지혜는 ‘확인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22. 지혜는 ‘알았으면 행하는 것’이다.

23. 지혜는 ‘최고의 생각, 최고의 행실’이다.

24. 지혜는 실패하지 않는다.

25. 지혜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다.

26.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27. 지혜는 ‘성자의 생각대로 깨닫고 행하는 것’이다.

28. <잠언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다.

29.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신이 된다.

30. <자기가 믿는 자>가 ‘자기에게 신’이 된다.

31.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자기에게 신’이 되어 그것으로 희망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고, 그것을 따라가며 열심히 살게 된다. 자기가 행해서 얻어도 ‘그 신’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믿고 감사한다. -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려하다.

32. 나무·철·석고·돌로 ‘우상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 우상 종교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영이 지옥이나 고통의 세계에 가는데도 모르고 산다.

33.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자’이시다. ‘지혜’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34.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혜’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지혜롭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의 근본자인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생각’을 주신다.
35. <지혜>는 하는 일마다 방법과 생각이 각각 다르다.
36. ‘최고로 높은 생각’이 지혜다.
37. 슬기·지혜·지식·명철·총명의 근본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38. <지혜>로 ‘찾던 것’을 찾게 되고, ‘원하던 것’을 얻게 된다.
39. <지혜>가 ‘발에 감춰진 보화’를 찾게 한다.
40. <지혜>는 성공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41. <지혜>가 ‘발에 감춰진 보화 중의 보화’다. 지혜를 찾아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밭’을 사라. <기도와 노력과 수고와 시간 투자>가 ‘지불할 값’이다.
42. 불의한 자들은 <지혜>를 불의하게 쓰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다. <불의 자체>가 ‘함정에 빠지는 길’이다. 지혜의 근본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악하게 썼다고 심판하여 ‘무지’ 속에 넣으시고, 거기서 ‘무지한 짓’을 행하면서 그에 따른 갚은 고통을 받게 하신다.
43. 미련한 자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행한다. 그래 놓고 후회한다.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황금 시간>도 때 지나면, <은 같은 시간>으로 변해 버린다.
2. 생명도 제때, 제시간에 잡아야 된다. 치타는 빨라서 다른 자가 못 잡는다. 그래서 독수리가 더 빨리 날아가 잡았다.
3.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여 주시며 경고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모르면 ‘자기’가 당하게 하신다.
4. 경고할 때 깨닫지 못하고 경고대로 안 하면, 자기가 일을 당한다.
5. <신앙의 경고>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몽땅 다 뺏기고 당하여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게 된다. 포기하면, 뇌가 달리 조직되어 돌아간다. 포기하지 말아라! 경고하니, 어서 돌이켜라!
6. 도둑은 대문 앞, 방문 앞에서 기치를 벌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느냐.
7. 농사를 다 지어 놓으니, 쥐들이 와서 알곡을 먹는다. 쥐약을 놓고 잡아라. 들쥐들에게 쥐약은 ‘기도’다. 기도하면 죽는다. 그것도 못 하나.
8. 밤에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들쥐가 밤새 먹을 것을 찾으면서 방해를 하며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을 주었다. “너, 하지 마!” 했는데도, 계속했다. 그래서 “너, 곧 보자!” 했다. 다음 날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쥐가 풀 속에 숨어 있었다. 묻지도 않고 밟아서 개떡이 되게 했다. 권고한 날에 듣지 않은 대가다.
9. 그동안 농사를 지어 <신앙의 알곡>을 만들어 놓고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사탄과 인사탄에게 도둑맞는다. 근신하고 해라!

10. 쥐뿔도 해 놓은 것이 없는데다가 게으르기까지 하니,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고, 굶주리며 희망 없이 사느냐. 사탄이 이제는 ‘간’을 뺏어 먹으려 하니, 정신 차려라!

11. 추수 때에 신앙의 잠을 자면, ‘수고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뺏긴다. 그리고 ‘과일’까지 뺏긴다.

12. 과수원의 과일들을 다 키워 놓고 ‘이제 쉬어야지.’ 하고 집에 가서 쉬고 나오니, 누가 과일나무의 과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 갔다.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13. 돈 가방, 여행 가방, 여권을 공항 휴게소에 놓고는, 화장실에 가서 이야기하고 상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서 먹고만 있느냐. 지금 누가 네 돈 가방, 여행 가방을 끌고 가고 있다. 그래도 과자를 사 먹고, 튀김을 사 먹고, 먹고 놀면서 즐기지만 하고 있을 것이냐. 도둑이 자기 가방을 훔쳐 간다는 것을 안다면, 누가 그러고 있겠느냐. 신앙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근신해라!

14. 아기가 우니까 엄마가 빨리 가서 먹을 것을 사 온다고 하며, 아기 혼자 두고 갔다. 그래 놓고 엄마는 자기 먹을 것을 사 먹으며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이야기하면서 낮이 빠져 있었다. 아기가 우니, 유괴범이 엄마한테 가자고 꺾어서 아기 손을 붙잡고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알아도 쓸데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정신 나간 신앙인도 그러하다.

15. 게으름과 태만함으로 인해 자기 것을 사탄·마귀·악평자에게 뺏기게 된다. 다 뺏기고 나면, 알몸뿐이다.

16. 사탄·마귀·악평자들을 막아라. 육성·게으름·태만함을 막아라. 기도해야 막는다. 기도하여 악과 불의를 때려잡고, 부강하게 되어 궁궐을 짓고 기뻐하며 살아라.

17. 사탄·마귀·악평자는 100% 불신하며 자기가 심판하면 끝난다. 20년, 30년, 50년 동안 불신하고 심판하면 ‘그 기간 동안’ 괜찮고, 영원히 심판하면 ‘영원히’ 괜찮다.

18. 자기를 무는 모기에게 “물지 마!” 한다고, 모기가 안 물고 가겠느냐. 그대로 두면 여름이 다 가도록 피를 빨아 먹는다. 발견하면 바로 없애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못 문다.

19. 모기를 죽인다고 ‘죄’가 되겠느냐. 사탄·마귀·악평자를 불신하고 심판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의’다.

20. <의가 없는 자>는 ‘악을 불신하는 기도’를 해라. 그것이 ‘의’가 된다.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21.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듣고, 어서 돌이켜라!

22. 도둑이 ‘거액이 든 네 돈 가방’을 지금 빼앗아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알면 내가 갈 길만 가겠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며 경고하는데도 관심이 없느냐. 잠시 후에 내가 고함을 치면서 “저 놈 잡아 줘요!” 하면, 경고했던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네가 경히 여겼으니, 나도 네 말을 경히 여기고 내 갈 길만 가야 되겠다.” 했다. 이에 “내 돈의 반을 줄게요. 제발 잡아 줘요.” 하니, 경고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 누군지 몰라? 나 돈 벌려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정신 나간 자들!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러 다니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야. 세상 돈 다 줘도 천국에서 쓰지도 못해. 여기서 끝내자.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이야기하러 가야 돼. 바쁘다.” 했다.

23. 한 남자가 한 아가씨 뒤에 붙어서 잡아가려는 것을 보고, “저 남자가 당신을 잡아가려고 아까부터 따라다니고 있어요. 순간 당신 가방을 채 갈 때 당신이 남자를 쫓아가면, 골목에서 잡아서 차에 태우고 데려가려 하고 있어요. 얼른 내 손을 잡아요. 나와 같이 가면 그렇게 못 하니까 내게 착 붙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포기하면 집에 가요.” 했다. 이에 아가씨는 그 말을 듣고 그리했다. 나쁜 놈이 따라오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사라졌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자가

도와준 자를 보고 “누구십니까?” 하니, 도와준 자는 “말씀을 배워 봐요. 나는 바빠요. 다른 사람 또 가르쳐 주러 가야 돼요.” 했다.

24. 네가 그 속도로 계속 운전하다가는 곧 사고 나는데도 계속 그 속도로 차를 몰고 가겠느냐. 지금 네 삶이 그러하다. 즉시 <네 생각의 운전대>를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

25. 10m 앞에 깊은 함정이 있는데, 눈을 감고 계속 걸어가겠느냐. 어서 <생각의 눈>을 떠라!

26. 네가 건너고 있는 구름다리가 20초 후에 끊어져서 대형 사고가 날 것이다. 즉시 번개같이 뒤로 나와라! 알려 주었으니 <신앙>도 이리 행해야 된다.

27. 철길 건널목을 건너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만 하면서 태평하게 가려느냐. 그렇게 가다가는 달려오는 열차와 부딪힌다.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냇 빠져서 가겠느냐.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사는 데 이런 일들이 많다. 고로 늘 설교로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 깨닫고 행해라!

28. 네 애인, 자녀, 친구가 지금 옆 골목에서 불량배에게 끌려가고 있다. 네가 모르고 다른 일만 하고 있으니 알려 준다. 알려 줬으니 신고하든지, 도움을 요청하든지, 어서 가 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일들이 많으니, 말씀으로 가르쳐 준다. 알려 줬도 안 하는 자는 당하고 말았다.

29. 네가 애간장 태우며 찾았던 아기가 앞의 바위 너머에 있는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있다. 고로 불러도 대답을 못한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 저마다 할 일이 있다. 알려 줬으니 빨리 행해라! 안 하면, 못 한 것으로 인해 평생 한이 된다.

30.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니, 시대 대표와 신부 대표가 물 밑에서 받쳐 주고, 물고기들도 받쳐 주어 건져 올린다. 물고기들은 관리자이다.

31. 알았으니, 열 일 제치고 해야 된다! 먼저 할 일, 먼저 하거라.

32. 다른 일을 하다가 ‘성령과 주가 한 말’을 듣지 않고 질질 끌면 안 된다. 그러다가 뺏긴다.

33. 선생이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에서 씨암탉을 기르고 있었는데, 초저녁에 닭이 “꽤!” 한 마디 소리를 질렀다. 즉시 판단하고 나가서 보니,닭장 안의 바깥쪽에 있던 닭의 모가지를 산짐승이 물고 있었다. 그러니 닭이 더 소리를 못 지르고 주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꽤!” 한 마디로 주인을 부른 것이다. 산짐승이 자기 닭같이 생각하고 목덜미를 물고 잡아당기고 있기에 작대기를 가져다 때렸다. 한 번 때렸는데 산짐승이 쭉 뻗기에, 발로 밟고 집어 던졌다. 닭은 며칠 누워 있다가 완치되었다. 그다음부터는 닭장 가운데서 잤다. 닭도 혼나고는 조심한다. 그런데 섭리인들은 혼나고도 또 한다. 닭 머리만 못하다. 그러고서 어떻게 <휴거 길>을 가느냐. 생명을 관리할 때도 닭의 ‘꽤’ 한 마디 소리를 듣고 나가듯 해라.

34. 먹기 주의, 놀기 주의, 자기중심주의, 안일주의를 즉시 끊지 않으면, 포식자가 살살 기어 오는 순간과 같다.

35. 양들이 한창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이때 양 한 마리가 “늑대가 왔다! 저 나무 뒤에 숨어 있다! 어서 피해!” 했다. 이에 어떤 양은 “나는 담대해. 괜찮아.” 하며 풀만 계속 뜯어 먹었고, 어떤 양은 “신경 쓸 것 없어.” 하며 풀만 뜯어 먹었다. 어떤 양은 “이 많은 양들 중에서 나를 잡아먹겠냐? 100분의 1 확률이다.” 하며 풀만 뜯어 먹었다. 어떤 양은 “결눈질하며 먹다가 늑대가 오면 툭 튀면 돼. 나는 뛰는 연습 많이 했어.” 하며 풀만 뜯어 먹었다. 어떤 양은 “내 애인이 안 가니, 나도 안 갈 거야.” 했고, 어떤 양은 “나는 살이 많이 찌서 반을 잡아먹혀도 나머지로 살 수 있어.” 하며 풀만 뜯어 먹었다. 어떤 양은 “나는 꿈을 잘 꾸는데 꿈에 나는 안 잡아먹히고, 내 옆에 있던 양이 잡아먹혔어.” 했다. 늑대를 본 양이 그 말을 듣고 “꿈 해석 잘못했어. 옆에 있는 양이 아니라 네가 잡아먹힐 꿈이다. 알아서 해!” 했다. 어떤 양은 풀을 먹다가 얼른 목자에게 뛰어갔다. 경고한 양은 모두에게 경고하고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늑대 한 마리가 추격하기 시작하니, 숨어 있던 늑대 수십 마리가 나와서 각각 양 한 마리씩 추격했다. 양들은 늑대에게 잡혔고,

울부짖으며 목자를 불렀다. 경고한 양이 “그것 봐. 이를 어찌! 내가 가서 목자에게 이야기할게. 그때까지 잘 싸우면서 버티 봐.” 하고, 목자에게 갔다. 목자가 알고 번개같이 달려왔다. 죽은 양도 있었고, 중상을 당한 양도 있었고, 양의 뿔로 늑대의 눈을 받아서 늑대의 눈을 빼놓은 양도 있었다. 목자는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었다고 양들을 모두 우리에게 가두고, 10일 동안 초창에 안 내보내고 교육을 시켰다. 이 시대 생명들이 이러하다.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36. 도둑이 밤중에 네 집에 들어와 네 집 방문을 조금씩 열고 들어오고 있다. 알려 줬으니 몽둥이가 준비됐으면 몽둥이로 내려치고, 몽둥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손으로 문을 잡고 있다가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일순간에 문을 닫아서 목 조르기다. 알려 줬으니 즉시 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내가 행할 것들을 말해 줬으니 이같이 행하라!

37. 성령님이 감동 주신 것을 즉시 행하면, 통쾌한 일이 일어난다!

38.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깨어서 문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도둑이 문을 열고 목을 쪽 빼 밀고 어두운 방 안의 상황을 살피고 있을 때 두 손으로 미닫이문을 확 밀어 도둑의 목을 졸라서 잡아라. 이때 애인이 와서 뜨거운 물을 부어, 통쾌하게 도둑을 잡아 감옥에 가둬라. 말씀을 즉시 실천하는 자는 사탄도, 악평자도, 게으름도, 태만함도 모두 통쾌하게 물리쳐 이겨 버리고 차원을 높여서 살게 된다.

39. 그 날의 막차가 떠나기 직전이다. 그런데 밥값을 냈다고 밥을 먹으려 하느냐. 밥 먹고서 그 먼 100리 길을 걸어 비를 맞으며 불량배들이 득실거리는 거리를 거쳐 가려느냐. 알려 줬으니, 밥값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아요.” 하고, 어서 막차로 뛰어와라. <지혜>는 ‘옳은 판단’이다.

40.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 생명길로 온 후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아라. 고생돼도 생명길로 온 것이 나은지, 편하다고 사망길로 간 것이 나은지 비교해 보아라. 호랑이와 고양이 차이다.

41. 생명과 같이 주는 <잠언의 지혜>를 받아라!

42. <지혜>는 ‘현실’과 ‘미래’를 같이 묶어 저울질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게 하고 올바르게 행하게 한다.

43. 고생돼도 시대 십자가를 지고 왔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이 최고로 계획하신 창조 목적을 실행하사, 결국 휴거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렸다!

44. 고생돼도 끝까지 온 자들은 <성경의 최고 목적,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룬 자들이 되었다!

45.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성공시킨다.

46. <생각>을 ‘육적’으로 하느냐, ‘영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47. <육적인 성공>은 ‘일순간의 영광’이다.

48. 영적으로 행하면 <영>은 영원히, <육>은 일생 동안 이상세계다.

49. 모두 ‘영’을 위해 살아라. 영원히 잘된다.

50. 영적인 일 먼저다! 산에 가다가 나무 꼬챙이가 ‘눈’을 찌르려 하는데, 그것을 먼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영적인 일>이다. ‘몸’에 걸리는 것들은 나중에 피하기다. 이것이 <육적인 일>이다.

51. 먼저 할 일 먼저 해야, 다 하게 된다.

52. 급한 화장실 먼저 가기다. 화장실이 급한데 참고 있다가 10분 후에나 화장실에 갔다. 갔다 오니, 천 리 길을 가는 열차는 떠난 후였다. 계획한 일이 헛일이 되었고, 계획한 것이 깨졌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했으면 여유 있게 했을 것이다. <지혜>는 ‘옳은 판단’이다.

53.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발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다.

54. 말씀을 해 줄 때 뇌에 꽃히게 듣는 자는 ‘성령의 몸’으로 쓰인다.

55. 단상에서 성삼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대로 못 전하고, 말을 빨리하고, 발음도 제대로 못 하니 온 교인들이 애간장을 태우며 참다가 성령님께 기도하여 고했다. 결국 똑똑히 발음하는 자의 말씀을 듣게 하고, 제대로 하게 한다.

56. 전능자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작은 자나. 제대로 배우고 해라.

57. 행악자와 악평자가 발작하면, 사람들의 육의 생명도 죽이고 영의 생명도 죽인다.

58. 정신이 미친 사이코는 아무에게나 해를 주고, 아무나 죽이기까지 한다. 고로 천 리나 멀리해라.

59. 상대의 계락을 알고 근신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화를 피하게 된다.

60. 이 시장 골목에 미친개가 산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나, 어른들은 “미친개는 제정신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안 미친개가 제정신으로 무니까 무섭지.” 하고 태만하게 다녔다. 태만하게 다니다가 코를 물려 코가 잘리고, 손을 물려 손이 잘렸다. 그제야 미친개 무섭다고 하며, 미친개한테 당한 자들과 협동하여 밥만 먹으면 미친개를 잡으러 다닌다.

61. 초등학생과 10대들은 미친개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너무 무섭다고 하면서 거리에 나가면 개들을 경계했다. 그러다 미친개가 쫓아오니 상점으로 쏙 들어갔다. 미친개가 입을 벌려 상점 주인을 물려고 하니, 이미 알고 쇠꼬챙이를 준비했다가 미친개의 입속에 깊이 쑤셔 넣었다. 미친개는 시장 바닥에서 뒹굴며 괴로워했다. 쇠꼬챙이 먹었으니 살겠냐. 때가 되면 죽는다.

62. 미리 가르쳐 주니, 예비하고 행해라!

63. 통장의 돈을 빼 가는 사기꾼, 미친개, 사이코들이 너무 많으니 철저하게 해라!

64. 외국인들을 끼고 통장의 돈을 빼 가는 사기꾼들이 많다. 사기꾼들을 놓고 매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국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들의 씨를 말리며 행하신다.

65. 미친놈 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너무 억울해서 30명이 자살하여 죽었다. 사기꾼을 잡는 자들도 돈을 먹고 눈을 감아 주니, 그들을 잡겠느냐. 고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사역자들을 통해 잡게 하신다. 그리고 30명 죽은 만큼, 그 행위대로 벌을 주게 하신다.

66. 돈에 미쳐서 미친 짓 하는 소수의 무리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의 길로 간다. 그 육도 영도 행위대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67. 육에게 고통을 줘도 행위대로 받는데, ‘영혼을 사냥한 자들이 받는 대가’는 어떠하겠느냐. 영혼을 사냥한 자들은 ‘구원의 길’이 끊어져, ‘사망’이 그들을 세세토록 다스린다.

<2015년 10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68. 알곡을 지켜도 쥐들은 지키는 자를 피해서 온다.

69. 너희는 알곡이다. 휴거된 자라면 들쥐들을 잡는다. 어린 생명들을 지켜라. 휴거되고도 들쥐에게 뺏기는 자가 제일 억울한 자다. 이는 마치 미친개를 잡다가 배설물 통에 빠져서 못 나오는 자와 같다. 그러하니 얼마나 억울하냐.

70.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열심히 하여 잘되는 자를 시기 질투하는 자는 미친개에게 물려 끌려 다니는 자와 같다. “미친개다! 조심해라!” 말해 줘도 “나를 훔아 주는데요?” 하며 가까이하다가 물리고, 같이 미쳐서 같은 생각, 같은 행위를 하며 산다.

71. 지혜가 없으면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잠언의 비유>를 깨달아라.

72. 행할 때마다 100% 확인해라. 확인하지 않고 행하다가는 미친개한테 물리듯 한다. 매사에 확인이다.

73. 네 생각이 그릇된 데 미치지 않게 해라! 안 그러면 똑같이 미친 사람 된다.

74. 월명동 산에 가면 뱀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은 늘 그 말을 생각하고 근신하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데서 뱀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리 알고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뱀을 잡았다. 어떤 사람은 뱀을 조심하라고는 했으나 지금까지 뱀을 못 봤다고 하며 안전하게 생각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뱀을 밟고 놀라 나가떨어졌다. 뱀도 놀라 넘어진 자의 몸을 스치고 도망갔다. 거의 기절하다시피 하고 심장이 잠시 멈췄다. 성령이 아시고 도와 심장이 다시 뛰게 했다.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75. 경고할 때 안 하면, 당한다.

76. <경고>는 ‘아는 자가 해 주는 것’이다.

77. <경고>는 ‘권고’도 된다.

78. “별 조심해!” 했더니, “산에 안 가니 걱정 말아요.” 했다. 그러다가 방에서 벌에 쏘여 울고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 자기를 왜 안 지켜 줬냐고 탄식하며 “짖값이에요?” 했다.

79. 어떤 사람은 수만 마리의 벌이 만든 꿀을 다 가지고 왔다. 벌이 쏘려고 달려들었으나 한 방도 안 쏘이고 왔다. 벌이 못 쏘게 벌 망을 쓰고 갔기 때문이다. 모두 ‘하는 방법’이 있다.

80. 꿈에 벌이 나오면, ‘악한 자’를 상징한 것이다. ‘영적인 벌’도 조심하고, ‘실제 벌’도 조심해라!

81. 황금 시간을 아껴라! 하루해가 너무 짧다. 하루해가 뜨고 숫자 3만 6천을 세면, 하루해가 넘어간다.

82. 인생 해도 너무 빨리 진다.

83.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다. 어떻게 했겠느냐? 청중을 모아 놓고 외쳐 다 회심하게 한 것이다. 한 명씩 말씀을 전하여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겠느냐.

84.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을 전도했겠냐.” 한다. 못 한 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보다 더 한 자는 “나보다 적게 했네.” 한다.

85. 6000년 만에 선포된 시대 진리의 말씀이다. 또 휴거도 되었다. 고로 시대 말씀을 담대히 전해라! 말씀을 전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손해 가는 것 없다. 자신의 공적만 더 올라간다.

86. <지혜>는 ‘확인하고 알고 행하는 것’이다.

87. 말씀의 밥을 먹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밥값을 못 하는 적자 인생이다. 자기를 위해서라도 행해라!
88. 영이 휴거됐다면, 행해 보면 육의 능력이 다르다.
89. 낙하산을 짊어지고서 뛰어내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안 퍼진다고 한다.
90.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리면, 공중에서 빨리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마치 나무 그늘 밑에 서 있는 것 같다. 해 봐야 안다. 전도도, 기도도, 강의도, 설교도 해 봐야 안다.
91. 교육을 받아도 이론이다. 교육을 받았으면 행해라!
92. 힘은 쓸수록 연단되어 더 강해진다. 의의 힘도 쓸수록 더 강해진다.
93. 30대, 40대가 된 자들이 힘 빠진다고 운동을 안 하면, 노인들과 동행하며 힘없이 살게 된다. 조금 움직이면 “아 파.” 하고, 일만 시키면 “안 맞아.” 한다.
94. 할수록 초능력자가 된다!
95. 자기 급대로 얻고 이론다.
96. <휴거>도 급대로 이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집을 크게 짓기도 하고 작게 짓기도 하듯이, 휴거도 그러하다.
97. <휴거 700선>을 어떻게 이뤄야 되겠느냐. ‘궁궐’을 짓고 700선을 이루겠느냐, ‘보통 집’을 짓고 700선을 이루겠느냐.
98. 안 하면 되는 것이 없다.
99. <죄>도 지어야 ‘죄’가 된다. <의>도 행해야 ‘의’가 된다.
100.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면, ‘병’과 ‘문제’다. 안 하니까 ‘병’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101. 결심하고 하려고 하면, ‘산만 한 큰일’도 ‘집’같이 보인다.
102. 오늘도 주일말씀을 보면서 ‘조은이보고 말씀을 보면서 잠언을 빼라고 할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말씀을 보면서 잠언을 빼면 길게도 빼고, 짧게도 빼고, 다양하게 뺀다. 다른 사람은 본문대로만 잠언을 뺀다. 내가 하자!’ 하고 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뺀 잠언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 줬다.)
103. 이번 주 주일말씀을 받기 전에, 꿈에 ‘찰밥’을 먹었다. 곧 이번 주 주일말씀이 ‘찰밥같이 착착 들러붙는 말씀’이라는 뜻이다.
104. 음식은 만들고 식기 전에 바로 먹어야 제맛이 난다. 이와 같이 말씀도 바로 전해 줄 때 바로 듣고 먹어야 제맛이 난다.
105. 식은 음식을 주면 먹는 자가 맛없게 먹고 힘도 안 난다. 일할 맛도 안 난다.
106. 달려가면서라도 ‘제때, 제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의 조서다. 늦으면, 생명이 죽기도 한다. 제때 전해 주면, 죽을 자가 살기도 한다.

107. 음식이 뜨거울 때 바로 먹듯이,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해라. 그래야 제맛이 나고, 힘도 나고, 할 맛도 난다.

<2015년 11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정의하고 대하신다.

2. <구종교>는 <신종교>에게 ‘해’를 주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그 시대 구원자’를 보내어 새롭게 구원역사를 펴시는데 해를 준 것이다. - 이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은 행위로 정의하고 대하신다.

3. 하나님은 ‘하늘 편’에 우선권을 주어 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늘 편’이 책임을 못 해서 할 것을 못 하면, 그것을 ‘가인 편’이 취하게 된다. 고로 최대한 해라!

4. <생각>으로 ‘사탄’도 ‘악’도 깨부수는 것이다.

5. <병>도 기울면 병으로 죽고, <신앙>도 기울면 어려워져서 신앙이 죽게 된다.

6.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계 이상은 못 먹는다. 이와 같이 <사람>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광 돌려도 못다 받는다.

7.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면, 마치 한 끼 식사 잡수시듯 다 받으신다. -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자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쓰시니, 그 영광이 하나도 소모되지 않게 하신다.

8. <세상>에서는 멀면 ‘전화’로 통하지만, <천국>에서는 ‘말’로 한다.

9. <뇌>가 체질이 되고 습관이 든 대로 하니, 옳은 것도 그릇 판단하게 된다. 이것을 ‘뇌의 고집’이라고도 한다.

10. 사람이 <생각과 행실>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면, 누가 옳은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것을 ‘하나의 고집, 무지’라고 한다. - 그러면 받을 것을 못 받고, 고생하며 사는 대가를 받는다.

11.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 그릇 생각하면, 무서운 사람이 된 것이다. 정상에서 빛나간 사람이 된 것이다.

12. 사탄도 하나의 사이코패스다. <자기의 그릇되고 악한 생각과 행위>를 ‘절대 옳은 생각, 옳은 행실’로 보고, ‘선’으로 보고, ‘정상’으로 본다.

13. 지옥에 간 자들이 고통을 겪으며 “우리가 무슨 죄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하면, 사탄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어서 왔다.” 한다. 각종 죄들이 있어서 지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안 믿은 죄>가 ‘지옥에 간 최고로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옥에 간 자들은 <자기 생각과 행실>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의’로, ‘하나의 생활’로 여기고 행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죄’를 모르니 ‘회개’도 하지 않았고, 결국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간 것이다. <자기 생각·체질·습관>대로 살면, ‘무서운 죄의 삶’을 사는데도 모른다. <절대자 하나님의 법>을 ‘나침반’으로 놓고 살아라.

14. 성자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의 공적, 각자 자기 공적 등으로 <휴거 300선>을 이루었다. 열심히 안 해서 <휴거>를 뺏기느냐, 열심히 해서 <휴거 선>을 높이느냐는 ‘자기 책임’이다.

15. <약한 자들>은 ‘백지장같이 작은 차이’로도 운명이 좌우된다. 그러나 <강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16.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이 ‘자기 무기’다. <강한 생각>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불의’를 깨부쉘라. <온전한 생각>이 ‘자기를 지키는 무기’다. ‘수호신’이다. 그래야 전능자도 그 생각에 함께하신다.

17. 사람의 <육>은 다 비슷하다. <생각>은 그 종류와 차원이 천층만층이다.

18.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롭고 온전한 생각을 가진 자>가 생각이 크고 높고, 하나님의 육이 되어 쓰임 받고, 온전한 인생을 살게 된다.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생각>도 끝이 없고, <일>도 끝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생각’으로 하면 쉽게 끝난다.

2. 매일 성공하려거든, <그 날의 일>을 ‘그 날’ 하도록 <생각>을 잘하고 해라.

3. <음식>도 그때 못 먹으면, 제맛이 변한다. <일>도 그때 못 하면, 일의 맛이 없어져서 안 하게 된다.

4. 새로 발견했을 때 새 맛이다. 그때 안 하면 맛이 변한다.

5. 새것도 있지만, 옛것도 새로 만나면 새 맛이 난다. (재혼자들은 옛사람을 만났지만, 새 맛을 보면서 산다.)

6. 옛 시대 사람들은 <옛 역사>를 만나고, ‘새 것’이라 한다.

7. 새 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를 만나고, ‘새 것’이라 한다.

8. 일을 할 때는 매듭을 짓고 끝장을 보게 하는 것이다.

9. 그때 못 하면 그 차원 그 생각으로 구상하여 행해지지 않는다.

10. 한 생각, 한 동작으로 하기다. 그러면 잘해진다.

11.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여 그 일의 맛을 잊었다가 다시 하면, 전에 했던 차원만큼은 안 해진다.

12. 일을 하다가 쉬면서 더 좋게 하게 생각해라. <일을 하면서 생각할 때>가 ‘더 좋게 하는 생각’이 잘 떠오른다.

13. <뇌>는 ‘눈’과 같아서 볼수록 깊이 보듯 할 때, 더 좋은 생각이 난다.

14. <뇌>는 ‘지체’다. <몸>도 운동하면 온몸이 풀려서 잘되듯, <뇌>도 한동안 집중하면서 움직여야 예리해져서 그 센터의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딴 것을 하면, 또 잊어버리고 서툴게 된다.

15. 새벽에는 뇌가 천재가 된다. 잠을 자고 나니 피곤하지 않고 총명하여 기억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판단도 잘한다.

16. <뇌>도 ‘한 지체’다. 가만히 두면 무기력해진다. 생각하면서 계속 일하게 해야 된다.

17. <할 일을 하고 받는 자>와 <할 일을 못 하여 못 받는 자>의 차이는 <집을 짓고 사는 자>와 <못 짓고 거리에서 사는 자>의 차이이다.

18. 해가 지면 야수, 뱀, 각종 해충들이 자기 생명을 해하는데 갈 길을 안 가고 거리에서 음란물을 보고, 게임을 하고, 연속극을 보고, 소설을 보고, 연애를 하면서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느냐. 해가 지면 야수, 뱀, 각종 해충들이 너를 둘러싼다. 그러면 그 뒤의 일은 예정되어 있다. 그 날이 너의 정한 날이다. 운명이 뒤바뀐다.

19. 육적인 세계로 보나 영적인 세계로 보나 <전능자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육적으로만 즐기면서 사는 자들은 누구든지 정한 날에 운명이 기울어져 어둠이 닥쳐오기 시작한다. 그때는 모든 짓값을 '자기'가 받아야 되고, 누구도 '자기'를 구하기 힘들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일단 '죄의 대가'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가 좋아하던 것의 종이 되어 받던 고통'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듯 나오게 된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

20. 제때 하면 <때>가 돕고, <하늘>이 돕고, <땅>도 돕고, <사람>도 도와주니 쉽게 된다.

21. 때 지나고 하면 '겨울철에 높은 산에서 생화를 구하는 것'같이 어렵고 불가능하다.

22. 북풍한설 눈보라가 몰아치니, <사람>도 없고 <꽃피는 때>도 다 지나가서 필요 없이 눈보라와 싸워야 된다. 행여 눈보라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꽃피는 때> 한 자>에게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제때 하지 않다가 <북풍한설 눈보라가 몰아치는 때>를 맞아 필요 없이 눈보라와 싸우다가 끝났으니,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나.

23. 기도를 깊이 해야 <하늘 일>이 '제때' 해진다.

24. 어떤 일이든지 '제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때' 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그리도 큰 것이다.

25. <작은 일>이라도 '제때' 하여 해결해 놔야 그 발판을 딛고 <큰일>도 해결하게 된다.

26. 그때 받은 말씀을 바로 보내서 바로 전해 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움직이게 되고, 뜨거울 때 진수성찬을 바로 먹는 것같이 말씀이 가치 있고, 바로 행하니 문제가 바로 해결된다.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의 신발이다.

2. 행실의 옷이다.

3. 기도의 대가다.

4. <육신 행위의 현상>이 '혼체'로 보인다.

5.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늘 시간'으로 보내느냐, '자기 시간'으로 보내느냐, '사탄 시간'으로 보내느냐가 좌우된다.

6. 옷을 건조시키지 않고 옷장에 넣어 놓거나 옷을 옷장에만 넣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좀먹듯, 사람도 어디 처박혀서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좀먹는 인생이 된다.

7. <자기 행위>에 따라서 점점 '빛'으로 가거나, 점점 '사망'으로 가게 된다.

8.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보아라. <자기 행위>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결정되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영의 운명'도 결정된다. <자기 육신의 행위>는 이러한데, 영계에 간다고 해서 '영'이 다르게 뒤바뀌어 있지 않다. 자기 행위대로다.

9. 거울을 보아라.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거울 속>을 '영계'라고 생각하고 보아라. 영계에서 <자기 혼과 영의 모습>은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 형성되어 보인다.

10. <자신의 현재 행실>이 물에 비쳐 보이듯이, <자신의 현재 행실>이 영계에서 혼과 영을 통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인다.

11. <앞을 내다보는 자>가 있고, <뒤를 생각하는 자>가 있고, <현실만을 보는 자>가 있다. 한 가지만 보면 실패한다. 세 가지를 다 보고, 현실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12. <앞날의 좋은 때>는 멀리 있다. 그러니까 '거리'도 재 봐야 된다.

13. <과거의 삶>을 '거울'로 삼고, <현재의 삶>도 '거울'로 삼아 앞을 내다보기다.

14. <앞이 막히는 곳>도 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길도 내다보고 가야 된다.

15. <하늘 길>은 갈수록 찬란해지고 높아진다.

16. <사망길>은 갈수록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만 가지 모두가 좋은 것 하나 없이 극적으로 괴로운 고통이다. 더 이상 없는 고통이다.

17. <천국 황금성>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1억만 가지 모두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기쁨거리, 유익거리, 자랑거리이며,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뿐이다.

18.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해도 '영원한 것'은 없다. 육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구원받은 자, 천국 황금성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만 '자기가 원하는 합당한 것, 자기가 쌓아 놓은 공적, 세상의 것'을 '영원한 세계인 천국'으로 옮기어 갖다 놓고 영원히 쓰고 누린다.

19. <천국 황금성>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족함 없이 다 해 준다. 그곳은 모든 것을 누리는 세계다. 영원히 누리는 세계다.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다.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 교육으로 가르칠 잠언

1. 관리하면, '육적으로 꼭 죽을 생명'도 살고 '신앙적으로 꼭 죽을 생명'도 살린다. (추운 계절이 되니, 추워서 귀뚜라미들이 죽었다. 한 마리를 잡아다가 방에 놓고 먹이고 물을 주고 풀을 주고 사과를 주니, 다 죽었는데 관리한 그 한 마리만 살았다.)

2. 관리하면,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린다.

3. <관리>는 '생명 연장'이다. '생명 창조'다. 존재물을 소생시킨다.

4. 관리하지 않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데까지만 견딘다.

5. 관리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6. 매일 <자기 관리>를 침단으로 해라. 매일 <표적>을 보게 된다.

7. <관리>는 '창조'다.

8. <관리>는 '탄생'이다.

9. <관리>는 '장명(長命)'하게 한다.

10. <관리>는 '빛'이 나게 만든다.

11. <관리>는 ‘변화의 표적’이 일어나게 한다.
12. <관리>는 ‘낙(樂)’이다.
13. <관리>는 ‘약’이다.
14. <관리>는 ‘치료’다.
15. <관리>로 ‘존재’한다.
16. <관리>는 ‘관심’이다.
17. <관리>는 ‘주인’이 되게 한다.
18. <관리>로 ‘존재물의 이상과 보람’을 얻고 누린다.
19. <관리하는 자>는 ‘정’이 들게 하고 ‘사랑’을 받게 한다.
20. <관리>는 ‘사고’가 없게 하고 ‘평화’가 오게 한다.
21. <자기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22. 사랑하면 관리한다.
23.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고장 난다. 고생한다. 죽는다.
24. 닿으면 닿는다.
25. <지구>는 안 닿게 창조하셨다. 만일 <지구>를 시계 속 톱니바퀴같이 서로 닿게 하여 돌아가게 했다면, <지구>도 닳아서 고장 났을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닿지 않고 스스로 ‘공전과 자전’을 하며 돌게 창조하셨다. <개울의 돌>도 자꾸 물이 닿고 돌끼리 닿으니 닳는다. <사람>도 닿으면 좋게, 혹은 나쁘게 깎아진다.
26. <쇠>도 <돌>도 서로 닿으면 닳아서 고장 나고 없어진다.
27. <인간>은 <전능자>와 닿아야 각종 모순이 깎여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28. <구약에서 온다는 메시아>는 ‘구약’에서 안 오고 ‘새 시대 신약’에서 왔다. <신약에서 온다는 메시아>는 ‘신약’에서 안 오고 ‘새 시대 성약’에서 온다.
29. 하나님은 ‘메시아’를 ‘온 인류’에게 보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해당된다.
30. 비가 와도 ‘지구 세상 전체’에 다 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1000년 왕국 혼인 잔치 역사>는 ‘성자의 재림을 맞은 곳’에만 해당되고, ‘성자의 재림을 맞고 따른 자들’만 사탄을 흑암에 가두게 된다.
31. 지구 세상에 계절이 오듯이 ‘사탄을 가두는 때’가 되어, 사탄을 흑암에 가두게 된다. 이 기간은 ‘1000년’이다. 이 기간은 ‘사탄의 형벌 기간’이다. 1000년 역사를 펴기 위함이다. 성자가 오시고 1000년 동안이다. 재림 역사 1000년 기간이다.

32.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비취 주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때가 되면 사탄을 흑암에 가두신다. 그때가 ‘사탄의 감옥 생활 기간, 지옥 형벌 기간’이다.

33. 구약 때도 ‘개인’이 절대 조건을 세워 하나님을 믿고 일체 됐을 때 ‘사탄’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못했다. 신약 때도 ‘개인’이 절대 조건을 세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일체 됐을 때 ‘사탄’이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못했다. <개인 책임 여하>에 따라서 ‘사탄’이 ‘그 사람’에게는 묶인 격이 되었다. 자기가 책임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사탄이 역사했다. 자기가 하나님과 메시아를 절대 믿고 책임을 할 때는 틈이 없으니 사탄이 역사하지 못했다.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누구에게나 그러했다.

34. 마치 계절이 오듯이, <성약역사 때>는 ‘사탄을 가두는 때’가 와서 사탄을 흑암에 가둔다.

35. 내 시계가 멈춘다고 시간이 멈추겠냐. 시간도 멈추지 않고, 지구도 멈추지 않고, 태양도 멈추지 않는다.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하나님>은 ‘사랑의 핵’이다. 고로 인간이 사랑만 하면 금방 반응을 보이신다.

2. <성자>는 ‘사랑의 핵’이다. 고로 ‘사랑’으로 대해야 금방 반응하신다.

3. <성령님>은 ‘사랑의 핵’이다. 고로 ‘사랑’으로 대해야 금방 반응하신다.

4. <핵의 심정>으로 ‘핵’을 대해야 된다.

5. <사랑의 핵>은 ‘심정’이다. 심정으로 대해라.

6. <핵>은 ‘핵’으로 통한다. <사랑의 핵>은 ‘사랑의 핵’으로 통한다.

7.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사랑의 핵의 존재자’이다. 고로 사랑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핵으로 대해야 삼위일체가 금방 반응하여 통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는 핵으로 대해야 삼위일체가 금방 반응하여 통하고, 행실도 진정으로 행하는 핵으로 대해야 삼위일체가 금방 반응하여 통한다.

8. 핵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주의 핵인 태양’ 같은 격으로서 ‘하늘과 땅의 핵’이다. 만사의 모든 것을 ‘핵’으로 대해야 삼위와 통하고, 삼위가 역사하신다.

9. <물>은 ‘물’로, <불>은 ‘불’로 대해야 바로 흡수하고 반응하듯, <신의 핵>을 ‘인간의 핵’으로 대해야 바로 반응하고 통한다.

10.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으로 대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선(善)’이시니 ‘선’으로 대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니 ‘진리’를 깨닫고 조건을 세워 그 앞에 나아가야 반응을 보이시고 역사하신다.

11. <핵>을 ‘핵’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치 <원하는 물건>을 말하는데 ‘딴 물건’으로 대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듯, 반응하지 않고 안 통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기계’로 보아라. <작동>은 ‘비밀’이다. 삼위는 ‘작동의 핵을 아는 자’에게만 반응을 보이고 움직이신다. <삼위가 원하는 말과 행실>로 작동시켜야만 반응을 보이며 움직이신다.

13. 일평생 <작동하는 법>을 모르면, 못 통하다 끝난다.

14. 모든 존재물은 ‘핵’에 가장 잘 반응한다.
15. <핵>을 손대고 <핵>을 말하여 행하게 한다.
16. 사단은 항상 <핵>을 손대고 <핵>을 말하여 꾀고 유혹한다.
17. <핵의 말씀>을 전하여 <핵>을 작동시켜 끌고 가기다.
18.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항해야 겨룰 수 있다.
19. 적은 ‘핵’으로 하는데 ‘소총’으로 대하면 상대가 안 되듯, 신앙 세계에서도 상대는 ‘핵’으로 하는데 ‘보통’으로 하면 안 된다.
20.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하는 핵>으로 해야 된다.
21. 상대는 ‘사랑의 핵’으로 대하는데 ‘일반 마음’으로 대하면 물리치겠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사랑의 핵, 진리의 핵’으로 대해야 물리친다. - 그러면 같은 ‘핵’으로 대하면서, ‘핵’이 하나 더 있으니 이기게 된다.
22. 항상 ‘핵’으로 승리하기다.
23. 전능자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항상 ‘핵’으로 인간을 대하신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삼위를 ‘핵’으로 대하지 않는다. 고로 삼위와 못 통하고, 삼위도 반응을 안 보이시고, 자신에게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24. 가령 하나님은 ‘온전하고 절대적인 진리의 핵’으로 대하는데, 자기는 ‘자기 사고의 핵’으로 대하니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생명 같은 진리가 빛같이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사랑도 그러하다.
25. 성자는 다른 뜻이 있어서 ‘남쪽으로 가는 핵’으로 대하는데, 자기는 ‘자기 의지로 서쪽’으로 대하니 느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성자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26. <진실로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앞뒤, 상하, 좌우 모두 이상 없이 ‘핵’으로 대해야 ‘성자의 핵’과 맞다. 그때 합당하면 성자는 반응하시고, 성자와 통하게 된다. 그 외에는 ‘탱크’에 시동을 안 걸고 혼자서 끌고 가려는 격이다. 이는 ‘산’을 들고 가기보다 힘들다.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훈>은 ‘자기 육신의 행위’를 그대로 반영한다.
2. 거울에 자기 모습이 그대로 비치듯, ‘자기 육신의 행위’는 ‘훈’에게 그대로 반영된다.
3. 기도 시간에는 ‘기도’가 최우선이다.
4. 말씀 시간에는 ‘말씀’이 최우선이다.
5. 그 시간에는 ‘그에 해당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함이다.
6. 모래를 가지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하여 집을 짓고 살 때 <모래>는 ‘딴 세상’이 된다. 모든 인생들은 ‘바닷가의 빛나는 모래’와 같다. <모래 같은 육신 인생>을 가지고 ‘전능자 삼위일체’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영혼>을 변화시키고 만들어야 된다. 그리하면 그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세계, 천국’으로 가서 살게 된다.

7. <구원을 이루지 못한 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육신 세계만을 위해 사는 자’다. 결국 모래는 바다의 파도로 인해 없어지고 만다. 육도 그러하다.
8. <육신>은 ‘산과 들의 나무, 돌’과 같다. 나무도 돌도 그냥 두면, 그 정도의 영광만 누리다 끝난다. 나무나 돌을 가지고 잘 깎고 다듬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름답고 귀한 집’을 짓고 편히 살듯, <자기>라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깎고 다듬어서 <자기 영혼>을 변화시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야 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영혼’으로 만들어 휴거시켜야 된다. 그러지 못하는 나무 자체, 돌 자체로만 쓰여지고 그에 따른 영광만 받고 마는 격의 인생으로 끝난다.
9. 사람들은 <만물>을 가지고 재창조하여 ‘필요한 것들’을 만든다. 곧 <나무>를 가지고 재창조하여 ‘집’을 짓는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혼과 영>을 재창조하고 변화시켜 ‘아름다운 집’을 만들듯 해라. 전능자는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신다. <영원히 살 영혼>에 목적을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육과 혼’도 창조하셨고 ‘인간의 육과 혼’을 도우신다.
10. <제1창조>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 <제2창조, 재창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중심으로 ‘자기’가 해야 된다.
11. <제1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무’다. <제2창조, 재창조>는 자기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다.
12. <제1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혼·영’이다. <제2창조>는 자기가 성삼위와 구원자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육도 혼도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는 것이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혼’을 보신다. 지구 세상에 73억 명의 사람들이 살지만, ‘자기 육신의 행위로 인해 자기 영혼을 휴거시킨 자’를 최고로 보신다. 결국 ‘영혼’만 남기 때문이다. ‘육신’은 꽃과 같이 다 사라진다.
14. <삼위와 구원자를 중심으로 만들지 못한 영혼>은 때가 되면 육신이 죽음으로 사라지듯 흑암의 세계로 사라져,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15. <자기 영>을 ‘자녀급으로 구원한 자’도 큰 자다. 더 큰 자는 <자기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로 구원한 자’다. 이는 정말 큰일을 한 자로서 크고도 큰 자다.
16.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 <자기 영을 휴거시키는 일을 하는 자>는 참으로 큰 자다.
17.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고 휴거시키지 못하고 ‘육신’만 쓰면서 사는 자는 마치 ‘개발 전에 화전민들이 쓰던 밭을 그대로 두고 사는 것’과 같다. - <만들어 놓고 쓰는 것>과 <만들지 않고 쓰는 것>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18. <성삼위와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만들면서 사는 것>과 <안 만들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19. <나무나 돌 등 만물을 그대로 놓고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집이나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며 사는 것>을 비교해 보아라. 매일 쓸 때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을 만든 자의 삶>과 <안 만든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못한 자>도 그러하다.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육성을 이긴 자>는 ‘사탄을 이긴 자’다.

2. 자기 영성이 육성을 이기면 ‘육’도 승리하고, ‘영’도 승리하고, ‘사탄’도 이긴다.
3. 자기 육성을 ‘생각’으로 강하게 꺾고 이끌어야 자기를 다스린다.
4. <삼위의 말씀>을 받고 행해야 ‘생각’이 강하게 되어 그 주관권을 벗어나 자기를 다스린다.
5. <이 세상의 삶>을 살면 ‘이 세상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면 ‘하늘의 사람’이 된다.
6.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세상에 속한 쪽’이 되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쪽’이 되기도 한다.
7. <삼위의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삼위가 존재하시는 세계’로 가지 못한다.
8. <자기 생각>이 자기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
9. <자기 행위>가 자기를 잘되게 하기도 하고, 고생하게 하기도 한다.
10.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잘하기다.
1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라. 그리고 잘 행하여라.
12. <뇌>는 생각하는 대로 시동이 걸린다.
13. <뇌>는 ‘차의 엔진’과 같다. 시동은 ‘생각’으로 건다. <생각>은 ‘키(key)’다.
14. <타인의 뇌>도 생각으로 시동을 걸어서 끌고 가니, 항상 분별해라!
15. <마음과 뇌의 키>를 삼위께 맡겨라!
16. <마음>은 ‘생각하는 쪽’으로 기운다.
17.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느낀다.
18. 생각하면 ‘생각의 눈’으로 보인다.
19. 생각할수록 돈보인다.
20. 생각할수록 자세히 알게 된다.
21. 먼저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구상’을 받기다.
22. <자기 생각>으로 해 봤자 ‘자기 생각 차원’이다.
23. <자기 생각>은 항상 ‘1’이다. <삼위의 생각>은 다르다. 이것저것 다 보고 3, 5, 7까지 생각하시고, 혹은 100, 200까지 생각하신다.
24. 온종일 삼위를 생각하고 사랑해 보아라. 그러면 ‘전능자의 생각’이 자기에게 와 있게 된다.
25. 생각을 잘못하면 딴 세상이다.

26. 앞으나 서나, 어디를 가나 ‘삼위’를 생각해야 ‘전능하신 삼위’와 통한다.

27. <생각>에 따라서 ‘육계의 것’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영계의 것’도 보여 주신다.

28. <생각의 구상>을 받고 행하여 남기기다!

<2015년 11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29. 번쩍이는 생각이다!

30. <생각>이 ‘혼의 움직임’이고 ‘영의 움직임’이다. 그렇게 혼과 영의 움직임이 빠르다.

31. <자기 생각>을 ‘자기 혼’과 일체 시켜라.

32. <생각>으로 ‘물건의 속과 겉’을 파악하고, ‘사람의 속과 겉’도 파악하고 투시한다.

33. 성령과 함께 ‘자기 생각’을 발달시키고 ‘자기 혼’을 발달시키기다.

34. <한쪽>만 보고 생각하고 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생각대로 안 된다. 고로 <다른 쪽>도 보면서 ‘두 가지, 세 가지’까지 생각해야 된다.

35. 가령 ‘이 돌은 작품이고 아름다운데 가격도 싸니 좋다!’ 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돌은 더운 지방에 있던 돌이니, 추운 지역으로 옮겨 놓으면 추워서 얼어 돌이 깨진다.’ 하고,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고 <깨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겨울에는 보온 덮개를 덮어 주면 문제가 해결되니 괜찮다.

36.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37.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장점과 단점’이 따라다닌다. 이때 ‘단점’을 해결하면 ‘장점’만 남는다.

38. 월명동에 <호수>가 있어 물이 고여 있으니 ‘모기’가 많이 생긴다. 하지만 해마다 ‘호수의 물’을 빼고 ‘새로운 물, 지하수’를 3일만 채워 넣으면 ‘모기 문제’가 해결된다.

39.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문제>가 따른다고 하며 못 한다. 고로 <문제 해결 구상>을 받아야 한다.

40. 월명동 <야심작>도 높이 쌓으니 ‘무너지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바닥을 깊이 파고, 바위에다 세우고, 누어서 쌓으니 ‘돌의 무게’를 각각 받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41. 어떤 일을 하면 거의 ‘문제’가 따른다. ‘문제’를 풀고 해결하면 된다.

42. 샘터에다 집을 지어서 샘에 물이 안 오면, 지하로 더 파서 샘을 만들면 된다.

43. <양달>을 만들면 <응달>이 생긴다. 그러면 <응달>에 ‘여름 정원’을 만들면 된다. 그럼 여름에 ‘그늘’에서 쉴 수 있다.

44. 신앙생활을 하는 데도 <좋은 점>만 보고 하지 말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 ‘그것’도 방지하면서 해야 된다.

45. <그 사람의 사연>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 <그 사람의 사연>을 들어 보면,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

46.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연>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잘못 생각하여 “왜 이같이 하셨느냐?” 한다.
47. 전능하신 절대신이 너를 사랑하니, 어렵히 알아서 오죽이나 정확하게 하시지 않았겠느냐. ‘결과’까지 생각하고 하셨다.
48. 인간은 ‘순간’만 생각하고 한다.
49. 전능자 하나님은 ‘미래와 결과’까지 생각하고 그 길로 가게 하셨다. 고로 ‘결과’를 보아라. 인간의 생각대로 한 것은 ‘순간’에는 존재하지만 ‘결과’는 사라져서 <생명>도 <존재물>도 없어져 버렸다.
50. 처음과 나중이신 <전능자 삼위일체의 구상>이다. 고로 ‘결과’가 남아 있다.
51. 이기면 얻고, 지면 뺏기거나 못 얻는다.
52. 뇌도, 생각도, 손발도, 몸도 쓰는 대로 적용되어 거기에 맞춰서 쓰인다.
53. <손>으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모래알’도 들고 ‘큰 돌’도 들고, ‘개’도 들고 ‘소’도 든다. 이와 같이 <뇌와 생각>도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적용되게 창조되어 있다.
54. 숙달되게 연습하고 노력하면 ‘인간이 창조된 한계선’까지 발달된다.
55. <육의 한계선>까지 발달된 다음에 <영의 세계>로 발달되면, ‘인간으로서 신’같이 발달되어 ‘절대신 삼위일체의 사랑의 대상체’까지 된다. 고로 삼위일체와 같이 살 수 있기까지 되어 ‘제2의 신’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56. <어떤 왕>이 자신의 생각과 삶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시골의 한 소녀’를 데려다 계속 가르치고 변화시키며 사랑했다. 그 소녀는 결국 ‘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 그리하신다.
57. <왕이 하는 일>과 <백성이 하는 일>은 너무 차이가 크다. <삶>도 차이가 크다. 왕은 민족 전체의 것을 대신 얻고 영광도 받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왕을 가까이하고 살면, ‘왕이 받는 기쁨과 보람’을 같이 누리게 된다.

<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58. <생각>에서 ‘보화’를 찾는다.
59. <육적으로 볼 때 생각의 실상>은 ‘육체’이고 <영적으로 볼 때 생각의 실상>은 ‘혼체’다.
60. <지난날 육을 위해 산 것>은 ‘육의 삶’으로 끝난다. <육의 삶>은 쓰면 없어지는 ‘소모품 삶’이다.
61. <지난날 성삼위와 함께 영을 위해 산 것>은 영원히 남아져서 ‘영’이 다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산다.
62. <지난날 육신이 행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마치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뇌에 녹화된 것들이 다 사라지듯 한다.
63. 인간의 삶에서 <육에 속한 삶>은 ‘소모품’과 같다. 소모품은 쓰면 없어진다.
64.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것’은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듯, ‘육에 속한 삶’도 그러하다.

65. <영에 속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영에 속한 삶을 산 자>는 ‘영이 구원’받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누리며, 지난 날의 삶을 회상하며 이야기한다.
66.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세계>는 ‘빛보다 훨씬 빠른 영’이 봐도 다 못 본다.
67. <육>으로는 ‘지구의 것’도 다 못 본다. <육>을 가지고 ‘우주의 세계’만 다 보려 해도 영원히 봐야 될 것이다.
68. <지구의 것>은 ‘건물과 집’만 구경한다 해도 ‘육신’이 다 구경하지 못하고 죽는다.
69. <이 세상의 것>도 육신이 일생을 살 동안 다 못 보고 죽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세계>도 ‘빛보다 빠른 영’으로 보고 누리며 살아도 다 못 보고 다 못 누린다.
70. 부지런히 행하여라!
71. 세상에 많은 것이 있어도 ‘수준’이 낮으면 못 누린다.
72. 자기가 사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놔도 ‘자기 마음·정신·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별로 못 누리고 가치 없이 산다.
7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존재하고 역사하셔도 ‘자기 수준’이 낮으면, 그 수준대로만 보고 생각한다.
74. <자기 생각의 수준>을 높이려면, 기도하여라!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 성자가 함께하시어 ‘뇌의 차원, 생각의 차원’이 높아진다.
75.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가 보면 ‘가치’도 더 알게 되고 ‘기쁨’도 더 크다.
76. <성령님>이 나타나셔도 어느 때는 ‘형체’는 안 보이고 역사만 하시고, 어느 때는 ‘상징으로 형체’를 보이며 나타나 기도 하신다.
77. <임금>이라도 어느 때는 ‘보통 사람’같이 나타나고,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는 ‘임금의 옷차림’을 하고 ‘임금의 위치’로 나타난다. - 성령님도 성자도 그렇게 나타나신다.
78. <생각>을 깊이 해도 ‘자기 영과 혼의 수준’이 높아야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
79. <삼위일체>는 거의 ‘본체’는 안 보여 주시고, ‘사람’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래도 할 일을 다 하신다.
80. <삼위일체>는 주로 ‘평소에 그 사람과 가깝고 그 사람이 존경하는 자’를 쓰고 나타나신다.
81. 알면 쉽다. 알면, 하루에도 책 한두 권을 쓰고 외운다.
82. 눈으로 봤을 때 사진을 찍듯이, 생각났을 때 기록하기다.
83. 외울 단어를 넣고 문장을 만들면, 하루에 책 한 권도 외우게 된다. 암기법 원리다.
-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84. 팔도 콩도 타고나듯, <인간>도 아예 유전자로 타고난다.
85. <타고나는 것> + <노력과 개발>이다.

86. 인간은 각자 ‘개성’으로 타고난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87. <타고난 것>이 없어도 <노력>하고 <개발>함으로 없는 것이 생기기도 한다.
88. <두개골>도 크기가 각자 다르게 타고나고, <키>도 각자 다르게 타고나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각 지체>도 각각 다르게 타고나서 눈·코·입·손·발 등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89. 집도, 빌딩도, 길도, 자동차도 만들어질 때 ‘크고 작은 특성’을 타고나게 된다. - 이와 같이 <사람의 지체>도 타고나고 <성격>도 타고난다. 타고나야 만들기에 유리하다.
90.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자’를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고 그를 키우고 만드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신다.
91. 어떤 사람은 “노력이 99%다.” 한다. 그런데 <왕>이 노력만 한다고 되느냐. ‘예정과 노력’이다. 곧 ‘타고난 것과 노력’이다. <메시아>도 노력만 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지구에서 딱 한 명’을 뽑아서 ‘사명’을 줘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는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아느냐.” 했다. <메시아>는 ‘타고나고, 노력하기’다. 예정되어 하나님이 키우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고, 사명에 따라 정신과 생각이 더 뛰어나게 되고, 거기에 자기 노력과 책임 분담이 더해진다. <메시아>도 ‘사람’이다. ‘육’이다. 메시아 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92. 소나무, 참나무, 각종 나무를 보아라. 그렇게 타고난다. <인간>도 타고난다.
93. <그 환경과 배경>에서 ‘그 환경과 배경과 체질에 해당되는 것’이 태어난다. - <닭>에서는 ‘달걀’이 나온다.
94. 우뚝 솟아난 산도, 쪽 찢어진 계곡도 ‘자연이 만들어질 때 그같이 타고난 것’이다. 인간도 ‘태어날 때 그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눈, 보름달 눈 모두 타고난다. 만들어질 때 ‘유전자’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다.
95. 중국에서 몸이 갇혀 있을 때 성자는 내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 사명으로 타고나서 이 길 가는 것이다.”
96. 저마다 <타고난 것>을 찾고 개발해라!
97. <보석>도 타고난다. 금으로, 은으로, 철로, 돌로, 흙으로 타고난다. 모두 다 귀한 보석이다. 흙도 보석이다. 이 세상에 흙이 없으면, 인간은 살지 못한다.
98. <지구의 모든 존재물>은 다 ‘보석’이다. ‘자기’에게는 보석이 아니어도 ‘사용하는 자’에게는 보석이다.
99. 송충이는 징그럽다. 그러나 ‘새들’에게는 귀하다. 새들은 송충이를 먹고 크다.
100. 자기에게는 ‘해’가 되는 것이라든, 알면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101.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 농약은 나쁘지만, 농사지를 때 해충을 없애는 데 쓰인다. 장단점을 알고 장단 맞춰 살아라!
102. 어렸을 때는 1년 중에 쌀밥을 한 번도 못 먹었다. 보리밥, 수수밥, 잡곡밥만 먹었다. 쌀이 귀했기 때문이다. 그때 선생은 가난을 한탄했다. 알고 보니, 잡곡밥이 최고로 좋은 밥이었다. 그때 누가 한마디만 해 줘서도 기쁘게 먹었건만, 모르니 한탄한 것이다.
103. 선생이 10대, 20대 때에는 보리밥에 고추장이 식사의 전부였다. 그리고 마늘이나 뽑아서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 했다. 밭에서 일을 하고 허기가 지면 ‘오늘도 보리밥에 고추장에 마늘을 찍어서 먹어야 하나? 도시에는 고기 반찬, 고급 반찬도 많은데...’ 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보란 듯이 마늘을 더 많이 뽑아서 한 끼에 15개씩, 20개씩 먹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늘이 몸에 그리도 좋은 음식이었다. 그래서 내 건강이 그리 좋았던 것이다. 그때 성자는 “인간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문제다.” 하고 깨우쳐 주셨다.

104. 남들은 돈을 주고 사과나 각종 과일을 사 먹는데, 선생은 산에 기도하러 다니면서 다람쥐들이 산의 밤들을 주워 먹기 전에 배를 채우기 위해 밤을 주워 먹었다. 인간 다람쥐 같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밤’이 몸에 그리 좋은 것이었다. 삼위일체는 말없이 여건을 틀어 주시며 좋게 해 주셨건만, 모르니 주관을 달리하여 달리 생각한 것이었다. 모두 깨달아라!

105. 없어서 못 먹고 배고파서 고생을 하면서 오다 보니, ‘평생 나눠 먹을 수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106.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려고 말없이 연단하신다. 그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감사하며 깨닫고 살아라.

107. 끝까지 연단받아라. 끝에 가면 눈에 보인다. 고로 끝까지다.

108. 선생이 몰랐을 때는 ‘나는 <지구 세상에서 제일 나쁜 지역, 월명동>에서 산다.’라고 생각했다. 깨닫고 알고 보니, 내가 <지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다. 모르니 <지옥>이었고, 아니 <천국>이었다. 모르면 <지옥길>을 좋아하면서 간다. <자기 삶>으로 인해 매일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역사는 <휴거>를 맞았으니, 모이면 항상 ‘혼인 잔치’다.

2. <이 시대 성찬 예식>도 ‘슬픔의 날’이 아닌 ‘영광의 날’이다.

3.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려고 성령과 함께 ‘생명의 씨를 뿌린 날’을 기념 하는 것이 곧 <성찬식>이다.

4. <생명의 씨>는 ‘시대 보낸 자’다. 씨가 땅에 뿌려지듯 그가 시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새 역사의 황금별판, 휴거의 황금별판 역사>가 일어났다.

5. <씨>가 무섭다.

6. <씨>로 ‘엄청난 역사’를 창조하여 ‘황금별판’을 만든다.

7. 천 석이든, 만 석이든 <곡식들>은 음식을 해 먹고 끝내고, <별씨 한 가마니>를 골라내어, 이듬해에 그 ‘씨’를 다시 뿌리고 벼농사를 지어 ‘황금별판’을 만든다.

8. <좋은 별씨>가 그해 논농사의 승패를 좌우한다. ‘씨’가 무섭다.

9. 과일도 ‘씨 하나’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둔다.

10. <씨가 아닌 것>은 ‘하나의 밥알’로 끝나고, ‘하나의 과일’로 끝난다.

11.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그래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황금별판 역사’로 만들기 때문이다.

12. 모두 다 ‘씨’가 될 수는 없다. 나머지는 먹고 끝난다.

13. 하나님은 ‘그 시대의 씨’를 뽑아서 세상에 뿌리신다. 그가 ‘시대 구원자’다. 그는 <씨>로서 세상에 뿌려져 희생하고

‘새 역사 황금별판’을 만든다.

14. 예수님은 ‘신약 아들의 씨’였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신약 황금별판 역사>가 펼쳐졌다.

15.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약 신부의 씨’를 보내셨다. 구시대와 세상이 ‘그’를 욕하고 악평하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그 씨’를 세상에 뿌려 <새 시대 황금별판, 휴거의 황금별판>을 이루셨다.

16. <하나님이 보낸 생명의 씨>로 인해 ‘성약 황금별판 역사’가 펼쳐지고, ‘휴거 황금별판 역사’가 펼쳐진다.

17.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씨’이고, <그를 통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씨’다.

18.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 역사>로 온 <새 시대 생명들>도 ‘씨’다.

19. <씨 하나>로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계속해서 번창해 나간다.

20. 오직 <씨>만 ‘황금별판’을 만든다. 나머지는 먹고 끝난다.

21. <씨 인생>은 ‘육적으로 먹고 즐기며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고,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황금별판으로 만들 듯,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고, <생명들>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부흥시키는 역할을 한다.

22. <구시대>와 <구시대인들>은 ‘씨’가 아니다. <새 시대>와 <새 시대인들>이 ‘씨’다.

23. <새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옥토’에 떨어져 수천 배, 수만 배 번창하여 <새 시대 황금별판 역사>를 이룬다.

24. 하나님은 <구시대>는 구시대 나름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새 역사의 씨들>은 ‘새 시대’에서 뽑아서 그들을 통해 <새 시대 황금별판 역사>를 이루신다.

25. <씨>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26. 아브라함도 <후손의 씨>를 ‘이삭’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 보니 그 족속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27.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37년 전에 <시대 보낸 자 하나의 씨>를 세상에 뿌리셨고, 그 ‘씨 하나’로 인해 수만 배 번창하여 <새 시대 휴거의 황금별판>을 이루었다.

28. <씨>는 수가 적으나, 그로 인해 온 세상이 뒤덮인다.

29. 오직 <씨>만이 번창해 나가니, 하나님은 ‘하나의 씨’로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을 대신하여 행하게 하신다.

30. <십일조>와 <감사>는 ‘자기 경제의 씨 역할’을 한다.

31. <새벽기도, 비상 기도, 117기도>는 ‘하루의 씨 역할’을 한다.

32. <말씀을 외치는 것>과 <설교>는 ‘씨 역할’을 한다.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33. 영적으로 보면, <육>은 ‘씨’다.

34. <육>이 ‘씨’가 되어 <자기 영>를 위해 희생하면, <영의 씨>이 새롭게 자라서 수천 수만 배로 거두어 ‘구원과 휴거’를 이룬다.
35.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산다.
36. <자기 육신>을 ‘씨’로 삼지 않고 ‘먹고 끝나는 곡식’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만 위해 사는 자들이다. <씨>는 수백 배, 수천 배를 남기지만 <먹고 끝나는 곡식>은 음식을 해 먹으면 끝나듯, <육>만 위해 사는 자들은 당세에 한때 빛나고 한 때를 살면 ‘미래’가 없다.
37. 너희는 <씨>다. 그러나 <먹고 끝나는 곡식>처럼 사는 자들이 있다. 네가 <씨>라면 ‘육’만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생명’을 위해 뿌려라.
38. <씨 한 되>로 ‘황금별판’을 만들고, <하늘 생명의 씨>로 온 세계를 ‘새 역사 황금별판’으로 만든다.
39. 그 많은 곡식들이 다 ‘씨’가 될 수 없다. <씨>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된다.
40. <씨>는 땅에 심어 희생하지만, 그 ‘씨’로 인해 수천, 수만, 수십만 배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씨의 영광’이다.
41. <씨>는 ‘농사지은 전체 곡식의 수’보다 적지만, 그 ‘씨’로 인해 <후대와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이것이 ‘씨의 가치’다.
42. 새 역사에 왔다고 모두 ‘씨’가 아니다. 자기 인생을 ‘씨’로 삼고 ‘영’을 위해 ‘생명’을 위해 심어야 <씨 인생>다.
43. 하나님은 분야별 센터마다 뽑아서 ‘개성의 씨’로 삼으신다. 사랑의 씨, 사명의 씨, 경제의 씨, 전도의 씨 등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다. 자기가 무슨 씨인지 알고, 각자 개성대로 ‘씨의 사명’을 해라.
44. <씨>는 관리를 잘하다가 ‘옥토’에 뿌려야 된다.
45. <섭리역사>에 수많은 생명들이 왔다가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중에서 ‘씨로 남길 자’들은 꼭 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황금별판’으로 만드신다.
46. <씨>는 ‘하나’지만 변창한다. <씨가 아닌 것>은 수가 많지만 하나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씨’를 가지고 역사를 펴신다.
47. 누구든지 ‘씨’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
48. 주인이 <씨>로 쓰려고 곡식을 보관했는데 쥐나 새가 와서 ‘씨’를 손대면, 주인은 ‘쥐약’을 놓고 ‘덫’을 놔서 반드시 잡는다. 씨를 먹는 쥐나 새는 주인이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
49. <씨>는 ‘씨밭, 씨씨’ 하지 않는다. 육하고, 악평하고, 불평불만하는 자는 ‘씨’가 아니다.
50.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집트의 400년 노예 생활>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로 가서 광야 생활이 고달프니, 씨씨 육을 하고 악평을 하고 구시렁댔다. <불평불만하고 악평하는 자들>은 종자가 나쁘니, 하나님은 ‘씨’로 삼지 않으셨다. 결국 그들은 ‘신광야에서 먹고 끝나는 소모품 인생’으로 끝났고, 거기서 씨밭, 씨씨 하면서 살다가 죽었다. 하나님은 선평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좋은 씨>만 골라서 ‘가나안 복지’에 뿌리셨다.
51. 불평불만하고, 악평하고, 육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씨’로 삼으면,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다 지을 때까지 불평불만 소리, 악평 소리, 육 소리, 원망 소리만 나오고, 크더라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무섭게 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씨’

로 삼지 않으신다. 그냥 ‘밥을 해 먹고 끝나는 곡식’으로 써 버리신다.

52. 썩는 문화에나 빠져 있고, 하늘을 향해 불평불만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빠져 즐기고, 각종 불의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자들은 절대 <씨>로 삼지 않으신다.

53. <씨>는 오직 감사, 오직 사랑이다.

54. 하나님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어 대며, 모든 자들의 본이 되며, 멋있고 빛나게 영광을 돌리며 성삼위를 사랑할 자들을 <씨>로 삼아 아껴 주시고, 그들을 뿌리고 심어 ‘황금별판’으로 만드신다.

55. 성삼위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여 남기고, <자기 육>을 ‘씨’로 삼아 ‘영을 휴거’시키고, <자기 육>을 ‘씨’로 삼아 ‘생명을 구원’하고 부흥시키면, 그로 인해 ‘황금별판’을 만들게 된다.

56. 자기를 ‘좋은 씨’로 만들어라. ‘좋은 씨’가 되어 뿌려져라.

57. <씨가 되지 못한 자>는 ‘하나의 곡식’이 되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별미도 만들어 먹고, 각종 진수성찬이 되어 ‘육’으로 화려하게 누리고 산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 없이 끝난다. <자기 육의 인생>이 ‘씨’가 되지 못하면 <육>으로 끝나고, <영>은 미래 없이 영원히 ‘사망’으로 끝난다.

58. <하나님이 택하여 씨가 된 자>는 <자기 육의 인생>을 ‘씨’로 삼아 희생하여 뿌리니, <육신의 영광>은 별로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거두어 <영의 부활과 휴거>를 이루고, 황금 세상인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여 영원히 누리게 된다.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린아이를 그냥 놔두면 자기 생각대로 산다.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줘야 ‘가르쳐 준 자의 생각’대로 하게 된다. 신앙으로 성장을 하는 자들도 그냥 놔뒀는데 알아서 실천하는 자는 적다. (한국과 해외 지도자들 모두 가르치라고 하셨다.)

2. 사람은 아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된다.

3. <힘든 것>도 좋게 가르치면, 뇌에 좋게 입력되어서 행하게 된다.

4.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위해 행하여 얻고, 업적과 공적을 쌓아 ‘육신’도 ‘영’도 변화시켜야 된다.

5.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위해 행하여 ‘육’도 ‘영’도 변화되어 살면, ‘자기를 위한 옷, 자기를 위한 차, 자기를 위한 집과 정원 한 세트’가 생긴 것과 같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른 생명>에게 전하여 가르쳐 ‘그들의 육과 영’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면, ‘그 생명의 옷·차·집·정원 한 세트’와 ‘자기의 옷·차·집·정원 한 세트’가 생기게 된다. 고로 ‘복음’을 전하여라!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에 선포하신 말씀>이 깨지지 않게 주와 함께 계속 증거하고 전해라!

7. 비진리와 비논리의 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 주장은 틀렸다. 그들은 ‘잘못된 주장’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에서 벗어난 <어둠의 세계>로 간다. - 이것이 곧 ‘너무도 그릇된 것을 주장하고 말한 대가’로 받는 ‘기약 없는 끔찍한 세계’다.

8.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전한 자들은 현실에서도 받고, 미래에서도 계속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이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늘 그들을 인도하시며, 늘 그들과 함께하신다.

9. <민족>이 당해 봐야 ‘민족의 당함’으로 인해 <자기>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고로 민족이 당하기 전에 깨닫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여라.

10. <섭리세계>는 ‘자기’와 같다. 자기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섭리와 함께 존재다. 고로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여라.

11. 월명동 전체를 각자의 것으로 분배하면, 한 사람당 ‘30평씩’ 돌아간다. 그것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겨우 30평을 쓰고 거기를 돌아다니려고 그 먼 길을 가겠느냐. <섭리사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고, <섭리사>를 위해 기도하여라.

12. <자기>를 위해 기도하듯이, <섭리사>를 위해 기도해라.

13. 자기를 위해, 섭리사를 위해, 가정을 위해,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기도 안 하는 죄’를 짓는 자다.

14. 다른 자들은 섭리사를 위해 일하는데, 섭리사를 위해 일하지 않고 존재만 하는 자는 ‘일 안 하는 죄’를 짓는 자다. 하면, <자기>도 얻고, <섭리사>를 위해서도 얻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

15. <나무>는 ‘섭리사’라면, <나무의 작은 가지들>은 ‘개인들’이다. <나무>에 물이 마르면 <가지>도 마른다.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도록 ‘물’을 주어라. 그러면 <가지>도 ‘물’을 빨아먹는다. 나무에 물을 주는 일을 하듯, ‘기도하는 일’을 꼭 하여라.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6. <자기 신앙>을 철저히 관리하고, 꼭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자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각종 일>을 해라. 안 하면 가뭄 든다. 안 하면 안 준다. 해야 축복해 주신다.

17. 행하면 행한 만큼 얻는데, 왜 안 하면서 얻기를 희망하고 있느냐. 그것은 ‘희망’에서 끝난다. 행하고 얻어라!

18. 정량을 하면 적당하고, <2배>를 하면 놀라게 되고, <3배>를 하면 웅장하게 되고, <4배>를 하면 감당 못 하게 받게 된다. - 신앙도, 기도도, 사명도, 전도도, 일도,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해 보아라.

19. 하나님은 ‘인간이 행한 것들’을 다 취하여 인간에게 안 주지 않으신다. 행한 만큼 주신다.

20. 먹을 것도 <자기 양>을 먹다가 <2배>로 갖다 놓으면 못다 먹는다. <3배>를 갖다 놓으면 먹다가 탈이 난다. - 신앙도, 기도도, 사명도, 전도도, 일도, 모든 것들도 그렇게 해 보아라. 그러면 확 달라진다!

21. 월명동의 돌과 나무도 <2배로 큰 것>으로 쌓고 심고,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10배 큰 것>으로 쌓고 심었다. - 그래서 보면 놀라서 가슴이 뛰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다.

22. <휴거를 크게 이룬 자들>은 그 영이 천국 황금성에서 ‘2배, 3배, 4배, 5배, 10배’ 크게 받고 누린다. 그 집과 정원이 너무 커서 육으로 끝까지 걸어가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안 믿어지면 가 보아라.

23.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실상은 빨리 간다.

24. 몇 마디 말을 급하게 하고 나니 ‘5분’이 금방 가 버렸고, 어떤 시간을 막연하게 기다리니 ‘5분’이 잘 안 갔다.

25. <1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어 보아라. ‘3천 6백’을 빨리 세면 ‘1시간’이 지나간다. 해가 떠서 지기까지는 10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10시간>은 ‘3만 6천을 세는 정도’다.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

26. 방 안에 앉아서 ‘3만 6천’을 빠르게 세면, 해가 넘어간다.

27. 시간을 아껴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써라.

28. 편지 한 장을 읽고 그에 대한 답장을 써서 구체적으로 교정하면, ‘1시간’이 지난다. 길면 ‘2시간 이상’이 들어간다. <1시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한다.

29. 편히 앉아서 쉬다 보니, 순간 ‘1시간’이 지나갔다. 정말 일순간에 지나갔다.

30. 낮을 놓고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나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섭리사·가정·국가·세계를 위해 기도하려면 ‘1시간’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1시간>은 겨우 자기 기도를 급하게 하고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32. 이렇게 <1시간>을 가지고서는 ‘겨우 거기에 해당되는 일’만 한다. 고로 ‘세 배’로 뛰어야 시간을 앞서서 행한다. 그러나 행해 보면 <육>은 느려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33. <하루 24시간>이 많다 하지만 잠자는 데 쓰고, 준비하는 데 쓰고, 먹는 데 쓰고, 기본적인 것을 하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보통 하루는 <10시간>으로 산다. 여기서 직장을 다니면, 이 <10시간>을 ‘직장 일’을 하는 데 써야 한다. 고로 ‘자기 시간’이 없다. 말이 <하루 24시간>이지, 하루가 정말 짧다. 고로 재촉하고 서두르며 뛰어야 된다.

34. 하나님께 왜 이리 시간이 빨리 가냐고 하니, 말씀해 주셨다. <1시간>은 ‘60분’으로 쪼개 났기에 많은 시간처럼 느껴진다.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 60개’ 하면 많아 보이지만, 다 뭉쳐 놓으면 너무도 적고 작다.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산다. <육>은 느리다. 막상 <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고로 <하루 24시간>이라 해도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간다. 고로 <육>에게는 시간이 짧다. 사람의 일생도 ‘100년’으로 쪼개 놓으니 긴 것 같다. 그러나 <느린 육>을 가지고 쓰니,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이다. 고로 ‘배 이상’ 빨리 뛰어야 시간을 길게 쓴다. <정해진 시간>을 ‘배 이상’으로 길게 쓰려면, 시간을 ‘영적’으로 써라. 곧 <영과 혼>이 ‘자기 육’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된다는 말이다. 이 단계로 가려면 ‘먼저 생각 집중’을 해야 된다. <생각>을 ‘집중’해야 <영과 혼>이 ‘육’을 쓰고 행할 수 있다. 생각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생각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신의 머리’를 써서 ‘신의 생각’대로 행해라. 이것이 <영과 혼>이 ‘육’을 쓰고 행하며 ‘영적’으로 시간을 쓰는 방법이다. <영>은 ‘육’보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삼위일체>는 첨단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한다. 고로 그 생각으로 하면 ‘두 배, 세 배’ 빠르게 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을 잡게 되고, 시간을 첨단으로 쓰게 되고, 같은 시간을 배 이상으로 쓰게 된다. 고로 그만큼 잘되고 성공한다. (하셨다.)

35. 사람은 어떤 일이 잘 안 되어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가 문제다. 또 얼마만큼 ‘빨리’ 일어나느냐가 문제다. <2배, 3배> 빨리 일어나면 그만큼 성공한다.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는 그 단계를 벗어나기가 힘들다. 고로 <영과 혼>이 ‘자기 육’을 쓰고 ‘영의 머리’로 하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삼위의 머리’로 하게 하라는 것이다. 만사의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

36. <육신>은 느려서 1시간도, 하루도 별로 한 것 없이 빨리 지나간다. 그런데 <생각을 최고로 집중>해서 하니 ‘3배’ 빨리했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니 ‘10일, 한 달’ 빨리했다.

37. <일>은 하고 싶어야 해진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생각이 강하게 되어 일이 하고 싶어진다. 고로 하게 된다.

<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38. <시간>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39. 인생, 길면 90세까지 산다. 10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치다꺼리하기도 어렵다. 평균적으로 80세까지 산다고 봐도 어린 10세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니, 인생 70년을 사는 것이다. 70년에서 잠자는 데 쓰는 20년을 빼면 50년을 사는 것이다. 50년 중에서 잠시간만 해도 20년이 넘으니, 이 시간을 빼면 30년이다. 고로 인생은 '30년'이 핵이다. 이 짧은 시간을 정말 귀히 쓰고, 시간을 잡아서 배 이상으로 많이 써야 된다. 그러나 <육>을 가지고는 '배 이상'으로 뛰기도 어렵고 '배 이상'으로 행하기도 어렵다. <육>으로는 '조금 더' 할 뿐이다. 단, <두뇌와 생각>은 '배 이상' 할 수 있다. <혼과 영>은 '배 이상' 할 수 있다. 생각을 집중하고, 신의 생각을 받아 신의 머리를 써서 하면 '배 이상' 행하여 '배 이상' 얻고 '배 이상' 사는 격이 된다.

40. <생각>은 '자기 육'과 함께 행하기도 하고, '자기 혼과 영'과 함께 행하기도 한다.

41. <육신>만 위해 살다가 끝나면, <혼과 영>은 사망으로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육신>만 사망으로 안 갔지, <생각>은 그대로 '자기 혼과 영'에게 간다. 고로 <육신>이 사망으로 간 것과 같다.

42.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전능자 삼위일체와 구원자'를 믿고 <자기 혼과 영>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가게 해야 된다. <자기 육신의 일생>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구원하지 못하면 끝난다. 그 일생 중에서도 '자기 때'가 있다. 그때 해야 된다. 때를 놓치고 하면, 행하여 구원받아도 그 혼과 영이 '차원 낮은 영계'로 간다.

43. 세상에서 "스타다. 왕이다." 하여 '모든 것의 왕'은 아니다. '그 센터의 왕'이다.

44. 그 센터에서만 '왕' 소리를 듣는다.

45. <물>은 몸에 가장 빨리 흡수된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즉시 갈증이 해소된다.

46. <약>도 체내에 빨리 흡수된다.

47. <독약>도 먹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된다.

48. <음식>도 먹으면, 바로 체내에 흡수되어 영양분을 공급한다. 이와 같이 <기도>도 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성자와의 대화도, 성령과의 대화도 하면, 바로 느끼고 효과가 있다. 고로 기도해라. 삼위와 대화하며 이야기해라.

49. <삼위와 약속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바로 '반응'을 보이신다.

50. 선생은 성령님을 '뇌'로 정했다. <뇌>는 생각하면 금방 반응을 보이듯, <성령님>도 부르면 금방 "왜?" 하고 반응을 보이신다. 안 부르면 온종일 '무소식'이다.

51. 삼위일체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약속대로 해 주신다. 가령 '어떤 만물'로 나타나겠다는 약속만 돼 있으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르며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만물'로 나타나신다.

52. 삼위일체와도 말하면 대화가 되고, 말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다.

53. <신과의 대화>는 '인간이 먼저' 해야 된다.

54. <신>이 찾기를 기다리기보다 <네>가 먼저 부르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더 느낀다.

55. <송신탑>은 있어도 '스마트폰을 가진 자'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송신이 안 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그러하시다. '자기'가 찾고 부르지 않으면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못 통한다. 먼저 부르고 찾고 이야기해라.

56. <송신탑>이 옆에 있어도 ‘자기’가 안 보내면 안 간다. <삼위일체>가 옆에 계셔도 자기가 찾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통한다.

57. <자기 육>은 성령과 대화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이나 영>이 성령께 이야기해서 성령과의 대화가 들려오기도 하고, <성령님>이 필요해서 먼저 부르며 대화하실 때도 있다. 그러나 이때만 기다리면 자주 대화하지도 못하고, 잘 느끼지도 못한다. ‘자기’가 먼저 안 찾으면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먼저 찾고 불러라. 먼저 이야기해라.

58. <자기 혼이나 영>이 성령님께 이야기하며 대화해도 <자기 육>은 모른다. 고로 <자기 육>이 성령님을 부르며 이야기해라.

5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기만 하지 말고, 자기 사연을 이야기해라. 부르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 위함이다. 열 번, 스무 번, 백 번 불렀으면, 대화해라.

60. <음식>도 제때 안 먹으면 식어서 맛이 변한다. <시간>도 제때 안 쓰면 맛이 가서 하기 싫다.

61. 하루 24시간은 1440분이다.

62. 하루에 ‘1분’만 성령님을 부르며 대화해도 성령님은 기뻐하며 좋아하신다. 그런데 ‘단 1분’도 삼위일체와 주께 안 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안 찾고 하루를 보내는 자들이 많다. 그래 놓고 ‘지구 재산’을 다 줘도 안 되는 <휴거>를 이루려고 하느냐.

63.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인사도 안 하고 친해지려 하느냐. 약 1~2초면 인사하는데 안 하고, 하루 종일 어색하게 산다. 그래 놓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64. 하루 종일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성령님이시다. 하루 1~2분만이라도 찾고 대화하면 성령님은 놀라 기뻐하시는데, 그 순간의 시간도 신경을 안 쓰고 보내 버린다. 그래 놓고 전능하신 성령님과 가까이하며 살 수 있겠느냐. 불러라. 찾아라. 불렀으면 네 사연을 말하며 이야기해라.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신이 되려면 빨라야 된다. 신은 <빠른 것>이 특징이며, <빠른 것>이 신이 가진 ‘능력’이고 ‘주권’이다.

2. <신>은 빨라서 ‘했어도’ 인간이 모르고, ‘지나가도’ 인간이 눈을 뜨고 봐도 안 보인다.

3. <신>은 ‘영체’라서 빠르다. 고로 육같이 지나가도 안 보인다.

4. <신>은 빛보다 수백조 배 빠르니, ‘육의 눈’으로 보이겠느냐.

5. 인간으로서 초인같이 빠르게 행하면, ‘신 같다.’ 한다.

6. 인간의 <육>은 느려도, 인간의 <영과 혼>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 다음으로 빠르다.

7. <육>이라도 빠르게 초속으로 행하면, 자신도 ‘내가 언제 행했나?’하며 잘 모른다. 보통으로 하면 3시간 걸릴 것도, 머리를 쓰고 생각을 잘해서 하면 20분 만에 해 버린다.

8. <육신>은 아무리 빨라도 느린 자보다 ‘조금’빠르다. 그러나 <생각>이 빠르면 느린 자보다 ‘10년, 20년, 50년, 70년, 100년’ 앞서서 빠르게 한다.

9. 어떤 자는 생각이 빨라서 30년, 100년 전에 행해 놓고 누리고 있는데도, 원시인같이 생각하며 사는 자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조차 못 하고 있다.
10. 모르니, 아직도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1. <생각, 사고, 뇌의 결정>을 잘못하고 잘못 조종해 놓으면, 잘못된 그대로만 생각하고 행하며 기다린다.
12. 자동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도록 조작해 놓고 엔진에 시동을 걸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자동으로 걸어 놓은 그 코스대로만 돈다. <인간의 뇌>도 그러하다. 어떤 것이 편해지고 그것이 좋아져서 체질까지 되어 버리면, 그것을 벗어나기 싫다고 한다. 이는 마치 <초가집을 짓고 사는 자>가 <별장을 짓고 사는 자>에게 “이 집은 우리 조상 때부터 살던 집이라서 더 편하고 더 좋다.” 하고 주장하는 격이다.
13. <자기 사고>가 ‘사고’ 낸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결국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육’도 고통을 안 받고, ‘영’도 영원한 이상세계에서 살게 된다.
15. <인간의 뇌>는 잘 사용하면 좋지만, 잘못 사용하면 고통이다. 자기가 ‘자기 정신과 몸’을 잘못 사용하여 불구자로 만들기 때문이고, ‘자기 잘못된 정신과 행위’대로 ‘그 영’이 형성되어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16. <이미 배우고 안 자>는 ‘잘못된 것’을 알고, 동참하지 않는다.
17. <악평하는 뇌>로 체질이 되면, 종일 악평을 하고 행하면서 ‘뇌, 생각, 마음’에서 즐긴다. ‘술’에 중독된 자와 같이 ‘악평’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악평한 그대로 <자기 뇌와 몸>이 만들어져서 <육>도 ‘악평 주관권’에 살다가, <영>도 ‘그 주관권 세계’로 간다. <영>이 그곳에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 거기서 극렬한 고통을 받으니, 그 아픈 고통에 소리 지르느라 ‘악평의 말’이 안 나온다. 지금 현실에서 그리되고 있다.
18.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께 ‘자기’와 ‘이웃 형제들’을 주관해 달라고 간구하며 ‘악의 행위’를 못 하게 하여라.
19. <기도>하면 정말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해 보아라!
20. 저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 보아라. 어떤 자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늘 사랑>을 받으면서 기도하여, 영이 구원받고 휴거되어 수천 개, 수만 개를 받고 산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하늘 사랑>을 받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고 사느냐. 혹시 받았어도 기도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 아니냐.
21. 모기도 ‘피를 빨아 먹는 침’을 잘라 놓고 피를 빨아 먹으라고 허락하면, ‘침’이 없으니 못 빨다가 결국 배고파 미쳐서 죽는다.
22. 뱀도 ‘이빨’을 빼 놓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놀 수 있다.
23. 저마다 매일 <뇌와 생각>에서 ‘불의’를 빼라. 그러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24. <인간>은 코끼리나 소보다도 ‘힘’이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머리’를 써서 포클레인이나 크레인을 만들어 10배, 100배 힘을 쓰며 행하게 하셨다. 고로 ‘머리와 생각’을 써라. 섭리인들도 모두 ‘머리’를 써라. 모기나 파리도 ‘머리’를 써서 우리에게 해를 준다. 힘들게 ‘몸’으로 다 하지 말고 ‘생각’을 써서 해라. 그러면 해도 힘들지 않게 쉽게 한다.

25. <육>으로 하면 힘들어서 많이 못 한다. <육>으로 하면 안 통한다. <영>으로 하면 많이 한다. <영>으로 하면 성삼위와 통한다. 또한 <생각>을 성삼위와 일체 시키고 집중하여 온전히 하면 많이 하고, 성삼위와 통한다.

26. 어떤 자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육>만 중심해서 ‘아침 일찍’ 떠났으나, 목적지까지 못 갔다. 어떤 자는 <생각>과 머리>를 써서 ‘오후’까지 생각하고 떠났다. 100% 미리 확인하고 떠났기에 해 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아침 일찍 떠난 자는 <생각>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고 무작정 떠났기에 다른 곳으로 간 것이다.

27. 사람이 <몸 차이>는 별로 안 나도 <생각 차이>는 엄청나다. ‘어둠’과 ‘찬란한 해’같이 차이가 크다.

28. <사람의 몸>은 구조와 모양이 다 같고 다 귀하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귀히’ 쓰이기도 하고 ‘천히’ 쓰이기도 한다. 그 차이는 <해>와 <별>의 차이같이 크다.

29. 천히 쓸수록 더 많이 쓰여지게 된다. ‘천한 곳’이 많아서다.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구 세상 73억 명이 잡아도 못 잡는 것이 있으니, 곧 ‘시간’이다.

2. <시간을 잡는 방법>이 딱 하나 있으니, 곧 ‘빨리하는 것’이다.

3. 어떻게 해야 빨리하여 시간을 잡을 수 있는가? <몸>만 빠르면 못 한다. <생각>을 빨리하고 날렵하게 해야 ‘시간’을 잡고 다스린다.

4. 시간을 잡고 다스리려면, ‘영적’으로 하여라. <육>으로 하면 두 배로 뛰어도 못 잡는다. <영적>으로 하면 지름길로 질러간다. 10시간에 할 것을 ‘지혜’로 판단하여 2시간 만에 해 버린다. 또한 <영적>으로 하면 힘이 있어서 굳건하게 꾸준히 하여 성공한다.

5. <영적>으로 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성령과 함께하기다. 주와 함께하기다. 지혜를 받아서 필요 없는 일 안 하기다. 지혜를 받아서 돌아갈 길을 질러서 가기다. <지혜>는 ‘판단’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6. <시간>은 자기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시간>보다 앞장서서 가니, 오히려 자기가 시간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가면서 다스린다.

7. 시간을 벌어 놓고서 방심하다가, 그 벌어 놓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아라. 그 시간이 썩지 않도록 빨리 써라! 표 나게 쓰기다.

8. 5분만 일찍 해도, ‘시간의 종’이 되어 부림을 받지 않는다.

9. 5분만 일찍 하면, ‘시간의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

10. <신의 머리>를 사용하여 <신>이 되어 행하기다! 그러면 매일 시간이 남아서, 그 시간에 운동도 하며 여유 있게 쓰니 건강까지 챙긴다.

11. <잠자는 시간>을 쇠사슬로 꽂꽂 묶어야 된다. 잠이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잡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멍청하게 생각이 나가 있을 때가 잡시간이다. 잡시간 안 주기다.

12. <신의 머리>를 쓰면 먼저 아니 빨리하게 되고, 10배 100배 웅장하게 이루게 된다.

1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를 써서 성경을 푸니, 50년 전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기성은 50년 전이나 후나 <자기 머리>로 성경을 푸니 못 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기다리며 막연히 믿고 살고 있다.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풀 기미가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알아서 뭐해? 이미 나의 뜻을 이루고 끝났다. 벌써 과일 나무를 심어서 과일이 익어 추수했고, 일부는 지금 추수 때를 기다리며 크고 있다.” 하신다. <시간>은 엄격하다. 온 인류에게 공의롭게 <시간>을 배부했다. 빨리 문제를 풀고 행하기다!

14. 종교인들은 <성경>을 놓고 ‘시험’을 본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겠느냐. 성경은 ‘풀고 행하기’다! 못 풀면 평생 못 행하고 끝난다.

15.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과 성자의 육’으로 쓰이니, 모두 안다. 성경의 비밀을 다 안다. 이미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펴고 뜻을 폈다.

16.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산다. <아는 자들>은 아니까, 어서 ‘시간’을 다투며 어서 말씀을 듣고 뜻을 이루며 가야 된다.

17. <아는 자>나 갈 길 바빠서 급하지, <모르는 자>는 태연하게 산다.

18. <아는 자>는 10년, 30년, 50년 늦게 태어났어도 ‘먼저 태어난 자들’보다 앞질러 간다. 알기 때문이다.

19. <휴거>로 ‘종교의 모든 문제’가 풀린다. - 이것을 누가 아느냐.

20. <휴거>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21.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22. 이 귀한 <휴거>는 ‘이 시대 구원자가 살아 있는 기간까지’ 이루고 끝난다. 그 후부터는 <성약 신부급 구원>이다.

23. 한 번 한 역사는 반복해서 안 한다.

24. 하나님은 미련 없이 해 버리신다. 못 하면 못 하는 것으로 끝난다. 다만 인간이 100% 행하도록 충분히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충분히 시간을 주시며 미련 없이 하신다.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인간>이 못 했으니, 못 하면 못 하는 것으로 끝내신다.

25. <하나님 편>에서는 100% 하고 끝낸다. 다만 <인간 편>에서 못 했으니 ‘인간들’만 아쉽고 미련이 남는 것이다.

26. 하나님이 도와줘도 못 하는 자들은 세상의 어느 누가 도와줘도 안 되니 미련을 끊고, 빨리 ‘다른 자’를 찾아서 하늘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27. <못 한 자들>에게도 시간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했는데 왜 못 했냐고 미련을 두지 않는다. 하라고 도와줬으니 미련 없다.

28. <나무>도 ‘산에서 골라서 키워야’ 훨씬 힘도 안 들고, 키운 자도 보람 있다.

29. <산>에 ‘이미 큰 나무’가 있는데 못 찾고, ‘작은 나무’를 골라서 키우니 시간을 엄청나게 뺏긴다. <산>은 ‘온 세상’이고, <나무>는 ‘사람’을 말한다. <이미 큰 나무>는 ‘생각과 사고가 명철한 자’를 말하며, <작은 나무>는 ‘생각과 사고가 흐리멍덩한 자들’을 말한다. <큰 나무>를 골라서 키우듯, <생각과 사고가 명철한 사람>을 골라서 키우고 투자해야 된다.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30. <시간>을 ‘맛있는 고기’로 보아라. <시간의 고기>를 가지고 삼위일체와 같이 요리하여 진수성찬으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며, ‘휴거의 차원을 높이기’다.
31. <삼위일체가 만들기 힘든 자>가 있다. 곧 ‘시간’도 자기 주관대로 쓰는 자이며, ‘생각’도 자기 주관대로 하는 자다.
32. <시간>을 잡아서 ‘자기 영’을 위해, ‘주’를 위해, ‘삼위’를 위해 써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시간>은 ‘물’ 흘러가듯 흘러가 버려서 남는 것이 없다.
33.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 못 하고 실패한다.
34. <물질의 십일조, 물질의 감사>만 하지 말고 <시간의 십일조, 시간의 감사>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시간>을 채워 주신다. <시간>이 차고 넘치니, 그 시간으로 많은 것을 행하여 성공한다.
35. <물질>만 차고 넘쳐야 부자나. <시간>이 차고 넘치는 자가 빈곤하지 않은 자요, 부자다.
36. <시간>을 ‘영원한 것’을 위해 써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다 사라진다. ‘영원한 것’을 위해 쓴 것만 영원히 남는다.
37. <시간>이 있어도 <할 일>이 없으면, 어이없이 시간이 다 사라진다.
38. <시간>이 ‘돈’이다. <할 일>이 ‘축복’이다.
39. 꿈에 보이는 ‘돈 보따리’는 ‘시간 보따리’다.
40.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사서 얻는다. 이와 같이 <시간>이 있으면 뭐든지 하여 얻는다.
41.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황금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동 시간’이 되기도 한다.
42. 10대와 20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다. 그렇다고 현실에서 ‘씩는 데’에다 시간을 다 쓰면, 시간이 많아도 쓸모없다.
43. <천국 황금성의 자기 휴거의 집 건설>도 ‘시간’이 없으면 ‘육’이 행하지 못하여 못 한다.
44. <천국 황금성의 자기 영의 휴거의 집>은 ‘자기 육’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대로 건설된다. 그러나 <시간>이 있어야 행한다. 고로 시간을 잡아라. 시간을 영적으로 써라.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해라. 신의 머리를 써서 행해라. 그리함으로 지름길로 가고, 필요 없는 일을 잘라라. 하늘을 위해, 너의 영을 위해 시간을 써라.
45. <하루의 시간>을 계산해 보아라.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시간>을 얼마나 귀히 썼는지 보아라.
46. <시간>을 가지고 시대 말씀을 전하며 민족과 세계적으로 쓰면 엄청나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금’같이 ‘다이아몬드’같이 쓴다.
47. 알고 살면 - 10년 전, 50년 전에 시대를 앞질러 행하면서 산다.
48.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오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도 귀히 써라.
49. <육의 생각>으로 시간을 쓰면, 잘못 쓰고 크게 후회한다.

50. <육의 생각>으로 시간을 쓰면, 아무리 몸부림쳐 빨리해도 ‘조금’ 빨리할 뿐이다.
51. <영적>으로 ‘성령과 성자와 주와 함께’ 시간을 쓰면서 행해야 ‘10년, 20년’ 앞질러서 행한다. 해 놓고, 영원히 후회가 없다.
52. 10대가 ‘40대에 할 일’을 알고 행하면, 20년을 앞질러 가는 것이다.
53. <시간>을 지켜야 ‘시간의 인봉’을 떼어서 ‘황금 시간’을 깨닫고 쓴다.
54. <시간>을 아끼면서 써야 ‘할 일’을 다 해 놓고, 힘이 없을 때에는 ‘그 시간’을 가지고 쉬고 먹고 누린다.
55. <시간>은 그 때 못 쓰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시간을 잘 쓰는 달인’이 되어라.
56. <음식>도 ‘때’ 지나면 맛이 간다. 썩는다. <시간>도 ‘때’ 지나면 제맛이 가고 썩어 버린다. 제때, 제시간에 생각하고 행하기다! 이것이 인생도, 신앙도, 휴거도 성공으로 이끄는 최첨단의 지혜다.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사랑’이다.
 2. <제시간>에 하면, 방해를 못 한다.
 3. <생각화>가 되어야 한다.<생활화>가 되어야 한다.<체질화>가 되어야 한다.
 4. <제 코스>에 들어가면, 방해자가 없다.
 5. 깊이 내려가면 <계곡의 물>이 더 흐른다. 더 내려가면 <냇물>이다. 더 내려가면 <강물>이다. 더 내려가면 <바닷물>이다.
 6. (이와 같이) <한 차원> 더 가면 ‘판 세상’이다.
 7. <생각>이 ‘목적’이 아니라, <행함>이 ‘목적’이다.
 8. 전능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개인·가정·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환경과 기후 등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방법들’로 틀고 막고 치며, 각종으로 심판하신다. * 이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잠언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준다.)
1. 지구가 ‘멀미’할까 봐 걱정하느냐. (말 같지 않지요?)
 2. 내일 월명동에 가려는데, ‘해’가 안 뜰까 봐 걱정하느냐.
 3. 때가 돼도 ‘선생’이 그곳이 좋다고 거기서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느냐. (정말 말 같지 않지요?)
 4. 길 가다가 ‘별’이 떨어져 머리 깨질까 봐 걱정하느냐.
 5. 조은이가 ‘남자’가 되어서 남자 화장실에서 만날까 봐 걱정하느냐.
 6. 그 귀한 <성자바위>가 바람에 날아가서 판 나라로 갈까 봐 걱정하느냐.

7. 굴을 막으니, 이제 굴에 못 들어갈까 봐 걱정하느냐.
8. <이단 종교의 주인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까 봐 걱정하느냐.
9. <육신 부활>이 되어 ‘죽은 육체’가 살아나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느냐.
10. 월명동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다 개발해 냈는데, 하나님이 ‘개발 전 상태’로 다시 돌려놓으라고 할까 봐 걱정하느냐.
11. 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했는데, ‘신부’로 변화되지 않을까 걱정하느냐.
12. 이와 같이 네 생각 속에 ‘말 같지 않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생각들’을 담고 살지는 않느냐.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느냐. 오직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순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시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행해라. 그리하면 ‘네 육 평생’ 옳은 길로 가고, ‘영 영원히’ 천국 황금성에서 삼위일체와 함께 사랑하며 먹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

<2015년 11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사가 예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때 그중에서 그래도 좋다고 하는 자’를 썼다.
2. 옛날에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옛 농기구’를 사용하며 힘겹게 농사를 지었다. 시대가 발달되니 ‘옛 농기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기계’가 나와서 쉽게 농사를 짓게 되었다. 섭리사 사람들도 그러하다. 조금 뛰다가 나간 자들은 ‘옛 농기구’ 같이 쓰다가 ‘옛 시대’로 갔다. 섭리사에 남아서 오랫동안 자기를 개발한 자들은 ‘이 시대에 해당되는 자’로 만들어졌다.
3. 샘을 못 팠을 때는 만드는 중이라서 ‘흐르는 물’을 먹지만, 샘을 파 놓으면 ‘좋은 물’을 먹게 된다. 섭리사의 사람들도 그러하다.
4. <휴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 마치 나무를 뺐는데 재목으로 깎지도 못했는데 실려 나간 격이다.
5. <섭리 초창기 때>는 ‘광야 생활’이었다. <지금>은 가나안처럼 개발하여 ‘젓과 꿀이 흐르는 때’다. 역사에 따라서 ‘섭리인들’도 그리 발달되었다.
6. 물이 없으면 ‘구정물과 흙탕물’도 생활용수로 쓴다. 예전에 섭리사에서 사람을 쓸 때도 그러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정화되다 만 물’과 같다.
7. 배고프면 ‘거지 밥’도 좋다고 먹고 살듯이, 옛날에는 ‘참된 자들’이 없으니 그 차원대로 사람을 썼다. <예전에 뜻도 모르고 섭리사에서 살다가 나간 자들>과 <지금 뜻을 확실히 알고 충성스럽게 행하는 자들>의 차이는 ‘거지 밥’과 ‘진수 성찬’이다.
8. <육계>에서 ‘육의 눈’으로 보면, 보통으로 보고 듣고 판단하게 된다. ‘영의 눈’으로 보아라. 그러면 ‘육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비유로 ‘근본’을 확실히 보게 된다.
9. <육계>에서는 ‘겉’만 보이지만, <영계>에서는 ‘겉’도 ‘속’도 다 보인다. 고로 속이지 못한다. 확실하다.
10. <육의 눈>으로 보면 ‘현실’대로 보이지만, <영과 혼의 눈>으로 보면 ‘그 속 내용과 문제가 될 것’이 보인다.

11. 그동안 섭리사에 많은 자들이 밀려왔다. 그러나 섭리사를 펴 나가면서 ‘진짜’만 남게 되었고,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알곡이 안 된 자’는 물에 떠내려가듯 했다.

12. 혼인을 하기 위해 선을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그중에서 가장 합당한 한 사람’을 찾는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결국 ‘성삼위와 보낸 자를 확실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진실한 자들’만 남게 됐다. 끝까지 가기다!

13. <월명동>도 개발 전에는 ‘초가집’과 ‘가건물’을 임시로 썼다. 그러다가 개발하여 ‘집’도 ‘건물’도 새로 지어서 쓰게 됐다. 섭리사 사람들도 그러하다.

14. <자기 신앙의 차원>을 높여서 새 집 짓듯 자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삼위일체께 합당하지 않다. 고로 월명동에 ‘새 건물’을 지은 후에는 ‘가건물’을 없애듯 하신다. 저마다 욕도 영도 새롭게 변화시키고 휴거된 생명들이 되어라.

15.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매일 ‘자기’를 만들고 개발해라. 그래야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하시는 욕의 전, 영의 전’이 된다.

16. 금 젓가락을 만들기 전에는 임시로 나무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쓴다. 다 만들면, 그때부터는 금 젓가락을 쓴다. 사람도 그러하다.

17. 때가 지나도 계속 나무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쓰듯 하면, 그 사람은 귀히 쓰임 받지 못한다.

18. 지난날 차원 낮게 역사를 펼 때는 <섭리역사>를 ‘하나의 쉼터’로 여기고, 잘해 주면 잘하고 못해 주면 못하고, ‘섭리사의 주인’이 되어 뛰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섭리사의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 같이 살 수 없었다. 고로 때가 되니 갈리게 된 것이다.

19.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라도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생활하지 못하니 같이 못 산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삼위의 마음, 주의 마음’에 맞춰야 같이 산다.

20. <자기 성격,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영’을 만들지 않으면, 천국 문 앞에 가도 문이 안 열린다. <천국 황금성 문>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에 맞게 자기를 만든 자’에게만 열린다.

21.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천국 황금성 문’이 열린다.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진 인물>을 보고 ‘황금성’에 들여보낸다. <인물>은 어떻게 만드느냐. 시대 말씀대로 행하면 <영의 인물>이 ‘하늘나라 형체’로 흠 없이 만들어져서, ‘황금성 문’이 자동적으로 열린다. <자기 욕이 행한 것>을 <자기 영>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늘에 속한 형체’로 만들어진단다.

22. <자기 마음대로 행한 자의 혼과 영>은 머리에 뿔이 나 있고, 그 모습도 천국의 형체가 아니다. 고로 삼위일체도 주도 “내 앞에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23. 성령님은 말씀하셨다. 지난날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신앙을 제대로 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 <모래>나 바람에 날아가지, <바위>나 <큰 돌>은 바람이 불어도 안 날아간다. <뿌리 없는 나무, 뿌리가 약한 나무>나 바람에 뽑히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너울너울 춤을 추며 흔들림 없이 잘 산다.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하다.

24. <깨달은 자>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휘날려도 희망을 가지고 기어이 ‘산’을 넘어간다. - 알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확인했기 때문이다.

25. <연단되지 않은 자>는 ‘사울’같이 명예를 줘도 감당을 못 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그러했다.

26. 다윗은 어렸어도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다 감당하면서 나라를 다스렸다. 어리지만 <연단된 자들>도 그러하

다.

<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영적인 자>는 ‘속’을 보니 속지 않는다.
2. 시대가 악하여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순수하게 하고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나타낸다. <믿고 진정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나타내 주어, 확실히 알고 따르며 뜻을 이루게 한다.
3. <겉>도 보지 말고 <양>도 보지 말고, <질>을 보아라.
4. <생각의 질, 말씀의 질>이 흠인지, 돌인지, 철인지, 동인지, 은인지, 금인지 보아라.
5.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생각의 질>이 나쁘면, ‘그 생각’으로 인해 무너진다.
6. <생각의 질>이 좋아야 <행실의 질>이 좋고, 그로 인해 <육>도 <혼>도 <영>도 빛이 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7. <영계>에서는 ‘미(美)가 권세’다. 성삼위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살면서 잘할수록 <영>이 ‘미인’이 된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황홀하다.
8. <영계>에서는 ‘미(美)’를 보면 ‘영의 급수’를 거의 알 수 있다.
9. 영계의 어디를 가도 그 영의 ‘아름다움’과 ‘입고 있는 옷’과 ‘빛나는 정도’를 보면 <영의 차원과 급수>를 안다.
10. <육계>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술집에서 사는 자도 있고, 이성 향락으로 정결하지 못하게 사는 자도 있고, 안 좋은 것을 행하며 사는 자도 있다. 남자도 그러하다. 아름답고 멋진 자들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간다. <영계>는 그렇지 않다. 영계에서 <아름답고, 옷을 잘 입고, 빛이 나는 영들>은 모두 ‘성삼위를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산 자들의 영’이다. 미와 옷이 빛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영들은 없다.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영의 미’가 뛰어나고, ‘옷’도 뛰어나고, ‘빛’이 찬란하다.
11. <좋은 날>에만 잘하는 것은 쉽다. <환난 때>도 잘해라. 그래야 ‘좋은 날에 닦이지 않은 것들’이 환난 때 닦여 빛나게 된다.
12. <좋은 때만 잘하던 자>는 ‘환난의 때’를 당하니, 가을의 낙엽같이 우수수 떨어져 사망으로 갔다. 연단되고 변화되어라!
13. 연단되고 변화되어 ‘청청 솔’이 되어라. 제때 ‘청청 솔’이 안 되니, 찬바람이 부니 ‘잎사귀의 색’이 변하듯 ‘마음’이 변하여 낙엽처럼 주저앉고 사망으로 끝나게 된 것이다.
14. 주를 만나면 잘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만나도 못 한다. 안 만나도, 안 보여도 늘 주와 함께 행하고 주와 교통하면서 잘해야 만나도, 보여도 잘한다.
15. 지금은 주와 함께 뛰면서 사는 때다.
16. 지금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나와 함께 뛰자.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면서 당세를 뜻있게 살자. 이것이 ‘나를 맞을 최고의 준비’다. 이것이 ‘휴거 700선까지 가는 지름길’이다.
17.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안 보이니 안 하지만, <천국 황금성>에 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가 보이면 잘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천국>에서도 못 한다. <세상>에서 안 보일 때 안 하는 자들은 <천국 황금성>에서 보여도 안 한다. 고로 성삼위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게 된다.

18. <인물>보다 ‘생각의 질’이다. <생각의 질>보다 ‘행실의 질’이다.

19. <마음과 행실의 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보다 못한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다. - 어떤 자는 바로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자는 가면서 알아보게 되기도 한다. 반드시 <마음과 행실의 질>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나쁜 자’도 만들면 - 100% 좋게 된다.

20.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열심히 행하여 쑥쑥 성장하고 변화되어, ‘섭리사를 거쳐 세상으로 나가는 생명’이 되지 말아라.

21. <휴거된 자>라도 ‘제대로 해야’ 매일 성삼위와 주를 모시고 기쁨과 희망의 잔치를 한다.

22. 늘 ‘주와 함께 해야’ 역사를 창대하게 펼쳐 나간다.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얼굴>도 매일 늙어 가듯이, <때와 기회>도 매일 지나간다.

2. 얼굴은 늙으면, 과거에 누가 미인이었는지 몰라본다. 자기가 과거에 미인이었다고 말해도 ‘늙은 얼굴’을 보면 안 믿는다. <얼굴>은 늙으면 다 비슷해진다. 고로 하나님은 아예 <마음과 생각의 질>을 보고 뽑으신다. <얼굴>은 늙어도 <마음의 질>은 안 늙는다.

3. 모두 ‘자기 혼’도 보고 ‘영’도 보아라. 누가 ‘미인’인지 보아라. <영의 미>는 ‘자기 욕이 세상에서 삼위의 뜻대로 행한 공적’대로 만들어진다.

4. <집>만 멋있어도 그리 좋고 그 집에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사는 자기 영체>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겠느냐. 매일 ‘영’을 만들어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시대 말씀>을 행해라! 행하는 대로 ‘영’이 만들어진다.

5. 삼위일체를 불같이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해라! 그러면 ‘영의 미인, 혼의 미인’이 빨리 된다.

6. 어떤 영은 눈이 작고, 어떤 영은 코가 낮고, 어떤 영은 키가 작고, 어떤 영은 얼굴이 별로다. 영계에 가 보면, 쉽게 금방 안다.

7. 자기만 자기를 예쁘다고 하지 말고, 옆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섭리역사에서는 ‘욕의 인물’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영’은 꼭 문제를 삼고, 수시로 ‘영의 선, 영의 인물, 영의 빛’을 본다.

8. <자기 욕>을 가지고 ‘자기 영’을 위해서 살아야 ‘영의 미’를 휘날린다.

9. <자동차>만 예쁘고 멋있어도 타면서 좋아하는데, <자기 영>이 예쁘고 멋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10. <영계>에서는 ‘미’를 보고 직접 보려고 몰려든다. <영계>에서 영의 급수와 영의 차원이 높을수록 ‘미와 옷’이 빛난다.

11. <천국>도 차원이 높은 곳일수록 그리도 아름답다. <낙원>은 별로다. <황금성 천국>에 가 보면, 너무 아름답고 빛나서 주저앉아 기뻐 감탄하다가 세월 다 간다.

12.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고 흠 없는 자>다.

13. <미인으로 변화된 최고 영의 열매>를 만들어라.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만드니, 결국 ‘자기’가 그리 좋아하면서 누리고, ‘자기’가 영원히 사용하면서 기뻐한다. <자기 영>을 만드는 것이 ‘인생을 사는 첨단의 지혜’다. <자기>를 ‘작품’으로 만든 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최고로 기뻐하고 좋아하며 누린다.

14. 영계에서 ‘이단에 속한 영들’을 보니 얼굴이 어둡고 무섭게 생겼고, 옷은 거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은 땅에 닿아 땅을 짚고 걸어 다니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짐승이 네 발로 다니듯 했다. 키가 너무 작으니, 팔이 땅에 닿아 손으로 땅을 짚고 다니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육>이 불법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으니, <영>이 크지 않고 그 모양이 된 것이었다. <비진리>는 ‘진리’가 아니니, 행해도 <영>이 크지 않고 아름답게 형성되지도 않은 것이다.

15. 이단에 속한 자들은 ‘자기 주장’이 최고라고 하며 살았기에, 그 교만함에 따라서 <그 영의 머리>는 사람의 배만 하게 컸고, <몸>은 영양실조로 작고 파리하게 말라 있었다. <이단의 교리>는 자신들이 꾸며서 자기들에게 맞게 해석하고 전한 것이다. 그 말씨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도 아니며, ‘온전한 주의 말’도 아니다. <이단의 교리>는 영양가가 없으니, 그렇게 많이 먹고 듣고 행해도 ‘은혜의 살’이 안 썩어서 <영>이 파리하여 피골상접 되어 다닌다. 기도하여 ‘영계에 있는 영들’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아라.

16. <이 시대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며 큰 영들>은 ‘키’가 2m나 된다. ‘영의 몸’도 아름답게 다 갖춰져 있고 그리도 빛난다.

17. <성령님>은 ‘상천하지 최고의 미의 여신’이다. ‘상천하지 최고의 미’를 가지고 계신다. ‘찬란한 빛’으로 싸여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다. 각자 차원대로 성령님의 형상을 보기도 하지만, ‘성령의 본체’는 제대로 본 자가 없다.

18.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성령님에 대해 아는 자만,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랑하며 산다.

19. 성령님을 못 봐도 상상하면서 살아라. 성령님이 ‘상천하지에서 최고로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늘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살아라.

20. 성령님은 예쁘고 아름다운 만큼 깨끗하시다.

21. <성령님>은 ‘여성 신’이니, ‘여자’로 나타날 때 가장 실감 나고 쉽게 인식된다.

22. <성령님>은 ‘여성 신’이니 ‘미’를 쓰고 나타나야 더 빨리 인식할 수 있기에, 이왕이면 ‘남자’보다 ‘여자’를 쓰고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역사를 많이 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신다.

23. <성령님>이 ‘남자’를 쓰고 나타나실 때는 ‘성령의 행실’이 많이 보인다.

24. <성령>께서 ‘가정국’을 쓰기도 나타나도록 ‘성격’을 닦아라. 만들어라. 성령이 대하듯 자녀를 대하고, 잘 관리하고 양육해라.

25. 엘리 제사장은 ‘자녀 관리’를 못 하여 하나님께 혼나고, 자녀도 화를 당했다.

26. <논, 밭, 나무, 돌>도 ‘집’ 가까이 있어야 더 가치 있다. <사람>도 ‘삼위일체’와 가까이 있어야 더 가치 있고 빛난다.

27. 항상 성령을 모시고 주와 함께 휴거의 삶이다. 잊으면 사망권으로 죽는다.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보고 듣고 행하면서 느낀다.

2. <여행>도 ‘재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여행을 떠나서 보고 듣고 겪고 느낀다.
3. <사랑>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보고 듣고 행한다.
4. <느낌>에 따라서 ‘재미와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다.
5. 만일 사랑해도 몸과 마음에 <느낌>이 없다면, ‘기쁨’도 ‘희망’도 없을 것이다.
6. 사람들은 물건도, 환경도, 집도, 자기도 더 좋게 만든다. <더 좋게 만드는 목적>은 ‘행복과 기쁨을 더 느끼기 위함’이다.
7. 행복과 기쁨을 더 느끼려면, 더 편하고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
8.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죽고 ‘뇌의 감각’이 둔해진다. 고로 보고 듣고 행해도 <느낌>이 약해진다.
9. 사람들은 느끼려 한다. 사랑하는 자들도 몸과 마음에 ‘사랑’을 느끼려 하고, 등산이나 암벽 타기를 하는 자들도 몸과 마음에 ‘스릴’을 느끼려 한다.
10. 좋게 느끼면, 기쁨과 행복이 폭발한다.
11. 밥을 먹어도 ‘느낌’, 차를 마셔도 ‘느낌’이다.
12. 말씀을 들어도 ‘느낌’이다. 느껴야 은혜가 있고 깨닫게 된다.
13. 말씀을 행할 때도 ‘느낌’이다. 행하면서 오는 보람·기쁨·행복·성취감 등의 느낌이다.
14. 재물을 얻으려고 할 때는 ‘희망의 느낌’이고, 얻은 후에는 ‘사용의 느낌’이다.
15. <환경>도 ‘기쁨과 보람’과 ‘좋은 것’을 느끼기 위해 더 좋게 만들고,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산다.
16. <느끼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식물인간’이다.
17. <영적인 것>도 ‘느낌’, <육적인 것>도 ‘느낌’이다. 그 <느낌>은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준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느끼는 축복’을 주셨다.
18.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느껴야지, <나쁜 것>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느끼면 몸도 뇌도 마음도 생각도 나쁘게 된다.
19. 인간은 ‘느낌의 충족’을 목적하고 산다. 그래서 시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연구하고 더 차원을 높여서 상대가 느끼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전도>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잘하게 된다.
20. 밥을 먹으면 잠깐 ‘배부름’을 느끼고 바로 끝난다. 이와 같이 <육의 세계의 것들>은 ‘좋은 것’을 느껴도 바로 끝난다.
21. <세상 육의 사랑>은 쾌락도 느낌도 일순간이다.
22. <영>이 ‘영의 세계의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육>이 ‘육의 세계의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혼과 영>이 느끼고, <전능자 삼위일체>가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고로 영원토록 쉬지

않고 느낀다. <천국의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면서 느끼는 것>을 ‘사랑’에 비유해서 말하면, 마치 남녀가 처음에 사랑하는 그 시간같이 기쁘는데, 그 기쁨이 쉬지 않고 연속되도록 해 놓으셨다.

23. <영>으로 느껴야 태양같이 식지 않고, 뜨겁게 계속 느낀다.

24.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도 성삼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면서 보고 듣고 행하며 느껴야 ‘세상의 것’을 느껴도 권태 없이 연속해서 느끼고, 일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느끼고 기뻐한다.

25. <육적>으로 느끼면 ‘일순간’ 느끼고 끝난다. <삼위일체>께 속하여 느끼고 기뻐하고 좋아해라. 그래야 ‘세상의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느끼니, 기쁨이 오래가고 이상세계다.

26. 사람들은 ‘보고 듣고 행하며 느끼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난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며 느껴도 <그 감동과 감탄>은 ‘성삼위와 함께 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까지 보여 주며 느끼게 해 주신다. <세상의 건물들>은 흙·돌·나무로 만들었고, 금이나 보석들로 꾸며어도 겉만 꾸며 놓았다. <천국의 집과 건물들>은 금덩이·보석 덩이로 지어 놓았다. 천국은 세상의 건물보다 수조 배 더 좋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천국의 것들>을 보면 ‘세상의 것들’은 정말 초라하다.

27.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도 성삼위를 최고로 사랑하면서 성삼위와 같이 영적 차원에서 보고 듣고 행하고 느끼면서 살면, 그 느낌이 최고다.

28. 사람은 보고 또 보면 느낌이 약해지고, 후에는 관심도 없어진다.

29. 아는 대로 느끼고, 깨닫는 대로 느끼고, 뇌의 생각이 생명력 있는 대로 느낀다.

30. <행복>은 ‘느끼는 대로’ 온다.

31. <만든 자>가 느낌을 많이 얻는다. <구경하는 자>는 만들 때의 느낌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32.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알고 깨닫는 대로 신적 차원에서 느낌이 강하게 온다. 모르고 못 깨달으면 조금만 느낀다.

33. 어린아이는 조금 느낀다. ‘뇌의 차원’이 성장하지 않아서다.

34. 어른은 많이 느낀다. 그러나 어른이라도 ‘모르는 자’는 조금 느낀다. 알고 깨닫는 대로 ‘느낌, 기쁨, 보람, 이상(理想)’이다.

<2015년 11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글을 쓰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때에 딱딱 맞춰서 세상 노래들이 흘러나온다.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다. 휴지를 돌돌 말아서 귀를 막고 할 수밖에 없다. 이때 받은 잠언이 1번 잠언이다.

1. <공동의 것>은 ‘전체’가 피해서 갈 수 없다. 고로 ‘개인’이 피해 가야 된다.

2. 동물도 체질이 되거나 훈련을 하면 ‘산 기계’가 되는 것이다.

3. 동물도 체질이 되거나 훈련을 하면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이 그대로 움직인다.

4.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원히 좋아하고 사랑해 주면서 같이 사신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됩니까? -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5. (하나님) 사람이 그냥은 안 된다. 하라는 대로 하여서 만들어야 된다.
6. (하나님) ‘하라는 대로’란, 나의 뜻대로다. 나의 생각대로다.
7. (하나님) 만들면 된다.
8.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만들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9. (하나님) 그릇도 만들면, 깨질 때까지 쓴다. 사람도 만들면, 뜻을 깨뜨리지 않는 한 계속 쓴다.
10. 만드는 과정 중에는 100% 마음에 안 든다. 그러나 다 만들면 완성되어서 ‘실수 없는 완전한 영’이 된다.
11. <육>은 만들다가도 잘 안 된다. 고로 <육>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 일평생’ 동안만 산다.
12. <영>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돌 조각’이 평생 존재하듯 영원히 존재한다.
13. <천사>는 완전하지만, ‘사람의 영이 휴거되어 완성된 것’보다는 못하다. 고로 루시퍼처럼 타락하기도 한다. <휴거되어 100% 완성된 영>은 완전하여 ‘천사’ 같지 않다.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이며 ‘성삼위와 일체 된 몸’이다. 고로 성삼위와 같이 움직인다.
14. <수준이 낮은 영>은 성삼위와 떨어져서 살게 된다.
15. 잘하면 섭리사에서 ‘해’같이 개성으로 빛나지만, 한 번 빛나가면 ‘꺼진 등불’같이 된다.
16. 그렇게 빛이 나던 자도 죄를 범하고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면, 전기가 끊어져 전구가 죽은 것같이 된다. 고로 땅으로도 하늘로도 끝이다.
17. <죄>를 모르면, ‘죄’를 짓는다.
18. <죄>를 모르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로 <죄를 모르는 것>이 ‘죄의 시작’이다.
19. 아무리 위치가 높고, 자존심이 세고, 엄청난 자라도 <죄>는 그에게 ‘암’과 같다. ‘회개’로 수술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서 죽듯 한다.
20. <죄>를 모르면, 사탄이 ‘그 무지’를 타고 들어와 ‘잘못된 계시’를 준다. 사탄에게 속고, 억울하게 죄를 짓기도 한다.
21. 심판이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는 수술이 무서워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병원에 안 가는 자와 같다.
22. <자기>가 ‘삼위의 말씀과 생각’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유혹도 이기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강철 인생으로 만들어라. 마치 ‘육’이 죽으면 끝나듯, <신앙>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끝난다.
23. <육>이 안 죽어야 각종 희망과 계획과 꿈이 태양같이 빛난다. 죽으면 끝장이다. 죽으면, 하늘 아래 잡초 하나도 못 뽑는다.
24. 성령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성령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와 같다.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에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2. <인간의 본능>은 ‘자기 생각’이다.
3. <신의 본능>은 ‘신의 생각’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4.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 행하게 된다. 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한다.
5. 보면서 본능이 생기고, 들으면서 본능이 생기고, 느끼면서 본능이 생긴다.
6. <본능>을 구별하고 행해야 된다. 본능대로 다 하다가는 망한다.
7. <인간의 본능>을 다스려야 된다.
8. 완벽하게 행하고, 절대자 신의 생각대로 하기다.
9. <자기 본능>을 꺾고 <신의 생각>으로 하면, <육>은 ‘인간’인데 <본능>은 ‘신의 생각’이 되어 행한다. 고로 ‘신의 실천’이 된다.
10. <신>은 인간을 창조하시어 ‘신의 뜻’대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인간>은 ‘자기 본능’대로 하려 한다. 고로 갈등이다.
11. <인간의 본능>이 ‘습관’이 되어 ‘짐승’같이 인생을 살다가 가기도 한다.
12. 하나님은 ‘본능대로만 사는 자’를 ‘짐승’ 같다고 하셨다. <짐승>은 ‘본능’대로만 살기 때문이다.
13. <본능대로만 사는 자>는 ‘육성’으로 인해 다 망한다.
14. <뇌>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좋아하면’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거기에 빠져 극적으로 즐긴다.’ 함이다.
15. <뇌>는 ‘철’ 같기도 하다. <철>은 강하지만, 불에 녹이면 펄펄 끓어 흐물거린다. <뇌>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철같이 강하다가도 흐물거리며 정신을 못 차린다.
16. <뇌>는 ‘물’ 같기도 하다. <물>은 끓이면 금세 뜨거워지지만, 그대로 두면 금세 차가워진다. <뇌>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일순간에 뜨거워지기도 하고, 금세 차가워지기도 한다. 금세 기뻐하고 희망을 느끼다가도 금세 절망하며 슬퍼한다. <뇌>는 최고로 빨리 영향을 받는다. 고로 ‘생각’을 지켜라.
17. <인간의 본능>이란 ‘자기 몸에서 작용하는 것들’이며 ‘자기 생각들’이다.
18. <인간의 본능>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흐른다.
19. <인간의 본능>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사람이 성장하여 나이가 들수록 ‘이성에 대한 본능, 욕심의 본능, 먹고 마시는 본능’이 많이 생기고, ‘물욕, 권세욕 등의 본능’이 그리도 많이 생기고, ‘편하려고 하는 본능’이 그리도 많이 생긴다.
20. 하나님께 ‘인간의 본능’을 싹 없애 달라고 하니, “<좋은 것>도 있는데 다 없애느냐? <나쁜 것>만 없애라.” 하셨다.

<2015년 12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일 안 믿는 것 두 가지’를 말하면서, 믿어지게 말할 테니 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드시는지 들어 봐 달라고 했다. 첫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개발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와 같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둘째,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오래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하여, 그것에 대해 대책을 세웠을 것이다. 하나님은 신의 뜻대로 하시니, 최고의 것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 대책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영원히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사탄’도 오래 살지 못하게 하셨다. 고로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
22. <오래 사는 존재자>가 ‘때가 되면 사라지는 자들이 가진 것들’을 다 차지한다.
23. 결국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영원히 존재’하시니,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은 다 ‘삼위의 것’이 된다.
24.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존재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고로 때가 되면 반드시 ‘지옥’으로 사라져 끝나게 된다.
25. <사람의 육>도 인생 100년이 지나면 모두 ‘죽음’으로 사라지게 하셨다. 고로 ‘살아 계시는 삼위의 것’이 되게 하셨다.
26.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삼위가 원하시는 대로 하는 자들의 영>만 삼위일체와 같이 영원히 살게 하셨다.
27. <육신>이 세상에서 온갖 것을 다 받고 살아도, 죽으면 끝난다. 받고 얻은 것을 다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야 ‘최고의 복’이다.
28. 삼위일체는 영원히 존재하시니 <천지 만물>이 모두 ‘삼위의 것’이다. 인생들은 살다가 죽으니 ‘잠깐만 주인’이다.
29. <하나님의 최고 주권>이 무엇이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부를 때 최고의 존칭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30. <오래 사는 것>이 ‘최고의 권세’다. <오래 사는 자>가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도 죽으면, ‘권세’는 다른 자에게로 간다. ‘산 자의 권세’이지, 죽으면 끝난다.
31. <영원히 사는 자>가 ‘최고 권세자’다.
32. <밀림의 것>이 다 ‘호랑이의 것’이지만, 호랑이가 죽으면 ‘살아 있는 토끼의 것’이 된다. 호랑이가 살던 굴도, 집도, 밀림도 호랑이가 토끼에게 안 줘어도 ‘살아 있는 토끼의 것’이 된다. 섭리사에서도 <신앙이 죽은 자의 것>은 ‘신앙이 살아 있는 자’가 다 갖게 된다. - 산 자의 것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33. 섭리사에서도 ‘신앙이 산 자들’이 다 누린다. ‘신앙이 죽어 있는 자’는 못 누린다. 기도하여 살아나라!
34. <영이 살아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영적으로 왕 노릇 하고, 육계에서 육이 살아 있는 동안에도 왕 노릇 한다.
35.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더 이상 없는 영광’인지 깨달아라. 그리고 <네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영원히 살게 해라.
36.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으면 ‘산 자의 것’이 된다.

37. 엄청난 집을 만들어 놓고 살던 자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었다. 그 집에는 ‘개들’이 살게 되었다.
38. <육신>을 건강하게 해라. 몸 상해 가면서 돈만 벌려 하고 명예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귀히 보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야 ‘섭리의 것’도, ‘개인의 것’도 얻은 것들을 오래 쓰고 누린다.
39. 병이 나거나 죽으면 얻은 것도 못 누린다. 건강해야 얻은 것들을 오래 쓰고 누린다.
40. 섭리사 안에서도 ‘신앙’이 죽으니, 하나님이 ‘휴거 역사를 하면서 주시는 것들’과 ‘앞으로 주실 것들’을 못 누리고 끝난다.
41. 미련한 자는 이성 사랑, 세상 사랑에 넘어가서, 마치 물고기가 낚싯밥을 먹고 ‘오래 살 영광’을 뺏기고 끝나듯 했다.
42. <휴거>같이 큰 것이 없다. 고로 <휴거>같이 조건을 크게 세워야 할 것도 없다.
43. <휴거되는 데 최고로 보는 것>이 ‘사랑’이다. ‘이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못 세운 ‘사랑의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44. 섭리사 안에 다 있다. 모르니, 세상 것들만 좇고 산다. 또 안 배우니 몰라서 세상 것들만 크게 보고 귀히 여기며 산다.
45. 섭리사 초창기 때는 ‘라면 하나’를 삶아서 ‘네 명’이 나눠 먹었다. 요즘에는 ‘네 명이 먹을 것’을 ‘혼자’ 먹으며 잔치한다. 그런데 ‘혼자 먹을 것’을 ‘네 명’이 나눠서 먹을 때만큼도 못 된다. 그때는 매일 전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 다 쓰러져 가고 썩어서 냄새 나는 방 교회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앉을 자리가 없었다. 좁은 틈만 나도 들어가 앉아서 말씀을 배웠다. 벽장까지 네 명씩 올라가서 말씀을 배웠다. 그때 교회로 사용하던 집은 곧 붕괴된다고 하여 사용이 금지된 건물이었다. 그곳에 몰래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다. 지금은 빌딩에서, 궁궐에서, 편한 방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도 그때만 못하다. 시대가 발달된 만큼, 편한 만큼, 잘 먹는 만큼 더 뛰어야 정상이다.

<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참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라!
2. <구원>은 벗어나는 것, 나오는 것이다.
3. 아이나 어른이나 사람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겪는 대로 ‘영향’을 받고 원하며 행하게 된다.
4. 이성도, 사랑도 참으라고 교육하지만 말고, 안 참아도 되게 ‘거기서 나오는 교육’을 해 주고 ‘나오는 길’을 만들어 주어라.
5. 자기 마음은 ‘불의한 것’이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면 영향을 받고 하게 되기도 하고, 참다가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한다.
6. <불의한 것>을 안 보고 안 들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불의한 영향’을 안 받게 된다.
7. <사망권 안에 있게 하면서 하지 말라고만 하는 방법>은 ‘눈을 뜨고 세상을 보지 말라’는 말과 같다. 눈을 뜨고는 세상을 안 볼 수가 없고, 그 주관권 안에 있고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8. <죄의 환경, 자기가 원하지 않는 각종 환경>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꾸짖고 참고 견딘다. 하지만 소용없을 때가 있다. 그때는 ‘그 주관권, 그 환경’에서 나와야 된다.

9. <사망권>에서 나오면, 참고 견디며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10. <죄짓는 생각>에서 나와라. <네가 처한 환경>에서 나와라. <네 주관권>에서 나와라. 그러면 마음도, 몸도, 눈도, 귀도 벗어나게 된다.
11. 형제들에게, 생명들에게 참으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서 이끌어내 주어라! 구해 주어라!
12. <그 어두운 처지와 환경>에서 나와라! <나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역사’다.
13. 만일 <생각>이 ‘이성’을 생각했다면, <생각>이 ‘이성 주관권’에 들어간 것이다. 참지만 말고 거기서 나와라!
14. 어린아이가 ‘공포 영화’를 보면,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기절하고 넘어간다. 그때 “뭐가 무서워? 괜찮아. 마음 독하게 먹고 참아.” 하면, 어린아이가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놀라서 심장마비가 일어나 병원으로 실려 가는 신세가 된다.
15. <참으라는 교육>은 ‘옛날 구시대 교육’이다. ‘어쩔 수 없는 방법과 처세’다.
16. “참아라.” 하는 말은 특히 ‘연단할 때 쓰는 단어’다.
17. 이성을 사랑하면서, 참기만 한다고 되겠느냐. 그 주관권에서 나오면 능히 이긴다. 끊어야 이긴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구시대에서 참아라.” 하지 않으시고 “새 시대로 나와라. 구원은 나오는 역사다.” 하신다.
19.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에서 나오게 하시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새로운 세계’로 가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 역사>를 벗어나고 <죄의 주관권>을 벗어나 <새 역사>로 오게 하여 <새 역사>에서 ‘뜻’을 펴셨다.
20. 아이를 뱀 여인이 아프다고 하는데, 계속 참으라고만 하면 되겠느냐. 때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
21. 여름철에 숲에 들어가면, 모기떼가 달려들어 물어뜯는다. 참고 견디기만 하지 말고, 숲에서 나와라!
22. <각종 죄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해도, 나가기 싫다고 하면서 계속 행한다. 이는 뱀이 개구리 발을 물고 있을 때 살려 달라고 하여, “뱀이 네 몸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뒷다리로 걸어차고 나와라!” 하며 그 때와 방법을 가르쳐 줘도 안 나오고 “참겠다!” 하는 격이다. 그러다 뱀의 입으로 들어가서 소리도 그나마 못 지른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먹은 뱀’을 잡아서 ‘돼지’에게 잘라 주어 먹이고, 돼지의 살을 찌운 후에 잡아다 잔치한다.
23. <싸우고 다투는 환경>에서 나와야 ‘싸움과 다툼’을 안 하게 된다.
24. <참을성이 강한 자>라도 ‘거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만 못하다.
25. <참는 것>은 금을 연단하듯 ‘연단할 때 필요한 방법’이다.
26. 필요 없이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을 참다가, 확 터져서 실수한다.
27.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참다가는 결국 못 참고 조금씩 말하게 된다. 거기서 나와 버려라. 그리고 바위나 나무에 말하고, 하나님께 말해라.

28. 참다가 마음에도 몸에도 병이 되고, 힘이 빠져 쓰러진다. 나오면 힘도 안 들고 편히 쉰다.

29. 어떤 자는 아픈데도 참고 견디면서 살다가, 결국 목이 부어서 숨을 못 쉬고 죽었다.

30. <수류탄>은 ‘안전핀’을 안 빼면 안 터진다. 그런데 ‘안전핀’을 쏘아 놔도 햇볕이나 난로 옆에 놓고 ‘열’을 가하거나, 뜨거운 물에 넣고 ‘열’을 가하면 터진다. <환경> 때문이다. <수류탄의 안전핀>은 ‘마음과 생각’이다. 아무리 마음과 생각에서 참아도 <환경>으로 인해 못 견디고 폭발한다.

31. <안전핀>은 ‘생각’이다. 아무리 ‘생각’으로 다짐해도 ‘환경’으로 이성의 열을 가하고, 인터넷과 음란물의 열을 가하고, 세상 쾌락과 노는 것의 열을 가하고, 각종 명예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열을 가하면 못 견딘다. <생각의 안전핀>을 쏘아 놔도 터진다. 고로 사람이 결심하고 맹세해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일순간 ‘이성’으로 터지고, ‘각종 죄’로 터지고, ‘사상’이 변해 버린다. <환경>이 그리 중하다. <나쁜 환경>이 ‘나쁜 사람’을 만든다.

32. 세상 연예계, 세상 예술계로 가면 아무리 마음속으로 ‘잘하겠다. 절대 잘하겠다.’ 다짐하고 맹세해도 <그 환경의 열>을 가하니, 수류탄 터지듯 터진다. 결국 당하고 ‘내 마음 나도 못 믿겠네.’ 하고 자포자기한다.

33.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환경>을 옮겨 주셨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끌어내어 ‘선조들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다.

34.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보고 들으며 <이성의 환경>에 가서 ‘이성의 열’을 가하면, 수류탄 터지듯 터진다. <수류탄 같은 몸>이다. 수류탄에 ‘안전핀’만 쏘아 놓고 그것을 ‘뜨거운 물’에 넣어 열을 가하듯, ‘마음과 생각’으로 다짐한 것만 믿고 몸이 ‘죄의 환경’에 있으면 수류탄 터지듯 터진다. 죄의 환경에 있지 말고, 어서 ‘그 환경’에서 나와라.

35. 남녀가 한방에서 자면서 이성의 행위를 안 하겠다고 맹세하며 참아도, ‘그 환경’에 처해 있으니 서로 흥분되어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관계가 아니고, 배우는 학문이다.” 하며 행한다.

36. 한 여자가 이성애에 빠져 살기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무대에 서는 자가 그러면 안 돼.” 했다. 그 여자는 “저도 법을 아니, 선을 안 넘어요.” 하며 속였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매일 남자와 같이 살면서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했다. <생각>이 변하면 ‘하나님이 죄로 보는 것’을 자기는 ‘죄’로 안 보고, 하와같이 ‘사탄’을 ‘천사’로 본다. 그리고 말하기를 “천사가 시켜서 했지, 내가 했나요?” 한다. “천사가 어디 있냐?” 하니, “저기요.” 한다. “저게 무슨 천사냐?” 하니, “내 눈에는 천사로 보여요.” 한다. 정신이 나가서 그리 보이는 것이다. 사랑에 정신이 나가면, ‘사탄’을 ‘천사’같이 보게 된다. 지옥 고통을 받아야 알게 된다.

37. <생각>이 변하니, 그리도 휴거를 믿고 휴거가 절실했던 자가 이성 타락을 하여 “저는 휴거를 안 믿고, 휴거에 관심도 없어요.” 했다. 이에 말해 주기를 “네가 이성애에 빠져 사니, <휴거>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탄이 네 마음을 쓰고 그리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한다. 그 길로 가면, 영원히 휴거 안 되고 사망이다.” 했다. 사탄이 ‘지구’를 다 주고 ‘죽음’에서 만 번을 구해 준다 해도 일점일획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멸하려고 오는 것이다. <사탄>을 멸해야 <생명>을 구원한다.

38. 사탄을 이기고 다스리면서 ‘구원 건설, 휴거 건설’ 한다.

39. 개인도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를 행함>으로 사탄을 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고, ‘사탄을 1000년간 옥에 가두는 방법’이다.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어제 전해 준 잠언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 주는 잠언은 주일말씀 내용과 더불어 더 깊은 것까지 여러 방면에서 보고 쓴 잠언입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잠언을 하나로 이어서 또 보면,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40.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뇌>에 시동이 걸려서 ‘보고 들은 것’이 작동되면서 마치 ‘시동을 걸어 놓

은 차'가 움직이듯이 <육>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움직인다.

41. <뇌>에 시동이 걸려서 열이 나면... 이성 사랑이든, 물건 사는 것이든, 노는 것이든, 썩는 문화를 즐기는 것이든, 뭐든지 스릴을 느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며 하게 된다. 그리고 <참았던 것>이 <행하는 것>으로 뒤바뀌어 “괜히 참았네.” 하면서, 그것에 중독되어 행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주를 믿고 사랑했던 자>라도 ‘주’도 외면하고 ‘구원’도 외면하고 ‘휴거’도 부정하면서 악평한다. 더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며, 자기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기고, <자기 행위>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때가 되니 계절 심판을 하듯이, 하나님은 ‘심판자’를 통해 심판하신다. 그때에 당하면 “이것은 연단이다. 시험이다.” 하며, 또 불법을 행한다. 그때는 그 행위에 따라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42. <썩는 물>에서 나와야 몸에서 냄새가 안 나고, 같이 썩지 않는다. 참아서 해결이 되겠느냐.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43. <의인>은 ‘하나님과 일체’ 되어 있기에, 하나님은 의인의 말을 잘 들어주신다.

44. <의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에 <의인>이 된 것이다.

45. <참을 때>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참는 것’이 필요하다. 쓴 약을 먹을 때나, 아픈 것을 치료할 때도 ‘참는 것’이 필요하다.

46. 참지 말고 <벗어나야 될 때>가 있다. 이때는 <벗어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47. 어떤 자는 큰 벌에 쏘이고 ‘아픈 것’을 참다가 죽었다. 이때는 병원에 가서 벌의 독기를 제거하고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 참다가 죽은 것이다.

48. 소변을 참다가 ‘병’이 되고, 대변을 참다가 ‘죽음의 길’을 간다.

49. <차>를 기다리는 자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아야 되지만, <주>를 기다리는 자는 ‘구시대’에서 참지 말고 ‘새 시대’로 환경을 옮겨야 된다.

50. 안 먹어서 속이 쓰린 것인데, 참는다고 되겠느냐. 먹어야 해결되듯이 ‘그 주권권에서 벗어나기’다.

51. 우울증, 조울증이 참는다고 낫겠느냐. 그 주권권을 벗어나 기도하고 하늘과 대화하고, 생명을 전도하고 가르치며 외쳐라. <형제>를 살리면 <너>도 살려 준다.

52. 선생도 <환경>을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것들’을 아예 안 보고 ‘사람 소리’를 안 듣고 기도하며 ‘하늘 것’만 보고 들으니, 그 길로만 가게 됐다. <참는 것>은 하산하지 않는 것이었다.

53. 내가 극적으로 행하는 만큼, 하나님은 <목적>을 빨리 이루셨다.

54. 너희 모두 시대 사명자같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뜻’을 펴겠느냐. <구원자 한 명>만 그리하면 된다. 너희는 ‘자기 삶 속’에서 불의한 것들 앞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생각>은 오직 ‘삼위일체’께 향하게 하고, ‘주와 일체’ 되고, 기도하며 대화해라. 그리고 ‘말씀 실천’이다.

55. <불의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는 ‘수도 생활’을 해도 안 된다.

56. <수도 생활>이란, 수도 없이 눈을 감고, 수도 없이 귀를 막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수도 없이 삼위일체와 대화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실천하고, 수도 없이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수도 없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서나 수도 생활’이다.

57. 아무리 참아도 내가 있는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세상 노랫소리, 세상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귀마개를 사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58. 하나님은 남녀를 서로 가까이 지내게 하고 서로 껴안고 있게 하면서 “이성을 참아라. 참는 조건을 세워라.” 하지 않으신다. “쫓개라.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 말씀에 빠져 실천하면서 고생돼도 참아라.” 하신다.

59. 이성을 가까이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껴안고 느끼면서 참는 자는 속이 타서 죽든지, 애가 타서 죽든지, 병이 나서 죽든지 한다.

60. <이 시대 하나님의 일>에 빠져서 그 일을 해라. 행하다 보면, 여자가 알몸으로 서 있어도 안 보인다. ‘일하는 데 쓰는 하나의 연장’으로 보여서 손에 쥐고 땅을 파게 된다.

61. 정신일도 하여 급히 ‘하나님의 일’을 하니 밤이 오는 줄 몰랐고, 세월이 가는 줄 몰랐고, 마귀가 급한 일이라고 하며 그렇게 수천 마디를 했어도 몰랐다. 천사가 말해 줘서 후에 알았다. 그때가 되니 <마귀>는 혈기가 나서 떠났고, <유혹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에 열 내는 쪽’으로 기울었고, <험한 산>을 다 넘었다.

62. 마귀는 “쉬었다 해.” 하고, 쉬면 이야기한다. “참지 말고 누려라. 마귀도 누리는데, 너는 왜 못 누리냐?” 한다. 그 이야기는 역시 ‘마귀 이야기’다.

63. <마귀의 방법, 세상 육의 방법>은 ‘깐 호박씨를 먹고 즐기는 것’이다. <하늘 방법>은 ‘그 씨를 심어서 고생돼도 가꾸고 희망으로 살다가 수백 배 얻고 사는 것’이다. 사탄과 마귀는 호박씨 까듯 <어렵게 번 것>인데 “먹고 즐기자.” 한다. 이는 망하는 방법이다. ‘육의 생각’도 그러하다.

64. <자기 육성>도 ‘마귀 사춘 생각’이다.

65. <몸으로는 남녀를 가까이하면서 마음으로만 이성을 다스리며 참는 자>는 ‘수류탄에 안전핀을 꽂고 수류탄을 뜨거운 물에 넣고 가열하는 자’와 같다. 곧 터진다! ‘팡’하고 터지면 ‘죽기’, 아니면 ‘중상’이다.

66. 터지기 전에 ‘방법’을 달리해라.

<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수요일, 목요일에 전해 준 잠언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67. <휴거>에 욕심을 부리고 하여라. 영원히 얻고,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

68.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해야 된다.

69. <의의 욕심>을 내고 해야 된다.

70. <죽음보다 쉬운 것>이 ‘휴거’다.

71. <죽음>이 얼마나 쉬운지 보아라. 잠자다 죽고, 사고 나서 순간 죽는다. 그런데 <휴거>는 더 쉽다. 왜? ‘하면 된다!’

72. 죽음 앞에 놓인 자들이 얼마나 안 죽으려고 하느냐. 안 죽으려고 별의별 극적인 것을 다 한다. 이것보다 <휴거>가 쉽다.

73. 안 죽으려고 이를 갈고 산다. 그것보다 <휴거>가 쉽다.

74. 이성 사랑, 세상 사랑,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그 기질을 보면, ‘금메달’도 딸 것이다. 그런 기질로 <휴거>를

못 이루느냐. 휴거되면 영원히 얻고 누리는데, 왜 ‘그 좋은 것’을 안 하느냐.

75. <휴거되는 데 쓸 시간>을 ‘자기 욕망’에 다 쓰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다 쓴다. <자기 사랑의 기질,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자기 즐거움’에 다 쓰고 ‘휴거’에 안 쓰니, 휴거가 식어 찬물이 된다. 고로 ‘휴거’에 냉랭해지고 관심 없게 된다.

76. <휴거 길>을 열어 주고 <휴거 300선>까지 이끌어 줘어도 ‘자기 시간’을 모두 ‘자기 즐거움’에만 쓰니, 늘 그 위치에 있다. 어떤 자는 그나마 이론 <휴거>를 상실하고 산다. <휴거된 영>이 천국 황금성에서 내려와 ‘자기 욕’을 잡고 탄식하면서 뛰기도 한다.

77. <휴거>를 ‘잠깐, 한때’로 생각하지 말고, ‘휴가’로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78. <휴거에 성공한 자>는 ‘세상 어떤 영광을 얻은 자’에 비할 수 없다. <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다.

79. <휴거 300선만 유지하는 자>는 마치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자’와 같다. 고로 주인이 와서 ‘땅에 묻은 달란트’를 빼앗아 ‘열심히 하고 수고한 자’에게 준다.

80. <휴거 700선>까지 갔어도 ‘더 높이 행하는 자’가 있다.

81. <세상 성공> 못 했어도 <휴거 성공>만 한다면, ‘세상만사 100만 가지를 성공한 자’보다 낫다.

82. <휴거 700선>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시대 구원자와 같은 급>으로 700선을 이루겠느냐. 저마다 ‘자기 급’대로 700선을 이루는 것이다.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 휴거’를 이뤄라.

83. <자기 급, 자기 차원>대로 700선을 이루는 것이다.

84. 1억, 2억, 3억, 10억, 50억, 100억 등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로 집을 짓듯이, <휴거>도 ‘자기 욕이 의를 행한 공적’대로 이루고, <휴거 집>도 ‘자기 욕이 의를 행한 공적’대로 짓는 것이다.

85. 저 사람이 700선이 됐다고 하니, “못 믿겠다.” 하느냐. <자기 급, 자기 차원>대로 700선을 이룬 것이다. - 굵고 크게 700선을 이루기, 가늘고 작게 700선을 이루기가 있으니 이해해라.

86. 어떤 사람은 돈이 ‘1억’밖에 없는데도 집을 지었고, 어떤 자는 ‘10억’이 있는데도 집을 못 지었다. ‘작은 집’을 마련하려면 1억으로도 충분하고, ‘큰 집’을 마련하려면 10억을 가지고도 부족하다. 저마다 이렇게 <휴거 700선>을 이루며 간다.

87. 영적으로 볼 때 돈은 ‘자기가 행한 의’와 같다. ‘공적, 공력’과 같다. 자기 공력, 자기 공적, 자기 차원대로 700선을 이룬다.

88. 크게 집을 짓기 시작하면 10억, 20억을 가지고도 아직 집을 짓는 중이고, 작게 집을 지으면 1억을 가지고도 집을 다 짓고 산다. - 더 좋게 계속 차원을 높여라. 자기 집 옆에 계속 <휴거 집>을 지어라.

89. 천국에 <자기 휴거 집>을 ‘보석’으로 짓느냐, ‘돌’로 짓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다. <보석 집>은 작아도 비싸고, 짓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어서 저마다 열심히 황금성에 <자기 휴거 집>을 지어라. 모자라면 하나님께 용자를 받아서 지어라. 값으면 된다. 만일 하나님께 빌린 것을 떼먹으면 <천국의 자기 휴거 집>이 담보로 잡혀 경매에 부치듯 하니, 열심히 하여 빚지지 말고 해라.

90. 어떤 자는 휴거되기 힘들다고 두 다리를 뺄고 주저앉았다. 얼마나 큰 집을 무엇으로 짓기에 저리하나 봤더니, 너무

도 ‘큰 집’이었고 ‘보석으로 지은 집’이었다. 휴거 선은 ‘500선’이었다. 힘내라고 알려 줬더니 벌떡 일어나서 행했다.

91. <일>을 해야 ‘돈’을 벌듯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의’가 쌓인다. <자기 의>만큼 ‘천국 휴거의 집’이 지어진다.

92. 월명동도 그렇게 크게 지으니, 수고도 고생도 많이 한 것이다. 한 번 만들어 놓으니 평생 쓰고, 1000년 역사 기간 동안 쓰게 되었다.

93. <휴거 700선>을 크게 이루어라! <황금성의 자기 휴거 집>을 크고 좋게 보석으로 지어라! 그래야 영원히 후회 없이 산다.

94.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밭 속에 보화가 있으니 제값 빼고도 가진 것으로 평생 누리고 기뻐하며 살았다. <휴거>도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여 얻고, 평생 영원히 누리며 살아라.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

95. <휴거를 이룰 시간>에 놓고, 시간을 세상 문화에 쓰고, 자기 시간으로 쓰고, 썩는 데 쓰지 말아라.

96. 천국 황금성에 <자기 휴거 집>이 얼마나 지어졌는지, 보아라.

97. 세상에서 <육>은 돈이 없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못 살아도 <영>은 영원히 좋은 세상,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휴거>가 ‘네가 영원히 잘되고 잘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98. <휴거의 집>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자기 행위, 자기 취향’대로 짓는 것이다. 정원도 만들고, 기암절벽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든다. 지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 조경 쌓듯 하는 것이다.

99. <천국 건물>을 ‘세상 건물’에 비유했다고 ‘세상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천국 집>도, <정원>도 ‘세상 집, 세상 정원’의 100배, 1000배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천국>은 빛보다 빠른 ‘영’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고로 <천국의 집과 정원>은 ‘우주의 별 하나 크기’다.

100. 아브라함도 천국에서 ‘한 도성’을 가지고 산다.

101. <개인 집>과 <한 나라의 크기>가 다르고, <한 나라의 크기>와 <온 세계의 크기>가 다르듯, <세상 크기>와 <천국의 크기>가 다르고, <세상 건물 크기>와 <천국 건물 크기>가 다르다.

102. 하나님께서 “<천국 황금성>과 <각자의 휴거 집과 정원>이 정말 크다는 것을 믿어라. <한 영의 정원>이 ‘이 세상 우주의 별 하나 크기’와 같다. 1. <세상의 별 하나>도 지구의 몇 배인 것이 많다. 그렇다면 <천국 황금성의 집>은 얼마나 크고 <천국 황금성>은 얼마나 크겠느냐. 믿어라. 사랑하니 믿어라. 정말 그러하니 믿어라.” 해도 안 믿어진다. 그 정도로 크다.

103. 한국 사람들은 ‘한국 명승지의 폭포’를 보다가 “이것은 세계적인 큰 폭포에 비하면 새끼손가락만 해. 큰 폭포는 이것보다 만 배나 커.” 하고 ‘그 크기’를 말로 하면 안 믿고 못 느낀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직접 보여 주었다. 직접 보니, 강물이 다 폭포로 흘러가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강물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네! 엄청나다!” 했다. “너무 크니 폭포로 안 보이지?” 하니, “맞아.” 했다. <사람 소변보듯 흘러내리는 한국의 폭포>를 보다가 <넓이가 1km나 되는 폭포>를 보니 ‘폭포’로 안 보게 되는 것이다. 천국에 가면 <천국의 집과 정원>도 그러하다. <세상>에서는 15평, 20평, 30평, 40평, 100평, 200평, 300평 되는 집에서 살다가 <천국>에서는 ‘한 성’이 집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이 <집>이냐? <도시>지.” 하게 된다. <천국의 정원>도 그러하다. 아파트 베란다나 집 마당, 개인 정원, 별장 정원 등 5평, 10평, 100평, 200평, 500평, 1000평짜리 정원만 보다가 <천국의 정원>을 보니 ‘정원’으로 안 보인다. ‘육’으로 가면 10년, 100년을 가야 되는 거리이니, 안 믿는다. 보고도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하다가 “안 믿어.” 하면서 안정을 찾는다. <천국 황금성>은 ‘영’으로도 한눈에 안 보인다. 성자가 몸부림쳐서 모두 휴거시켜 났는데, <황금성>을 한 번에 보고 충격 받고 미칠까 봐 ‘한 번’에 안 보여 주시고 ‘조금씩’ 보여 주신다. 조금씩 보여 주니 “세상에

서 선생님이 말한 것보다 작네요.” 한다. 성자는 한 번에 안 보여 주신다. 먼저 <작은 방>을 보여 주시는데, 그 크기가 1000평, 10000평이다. 그러다가 10만 평짜리를 보여 주신다. 그러면서 <정원>도 100만 평짜리를 먼저 보여 주시고, 그다음에 1000만 평, 그다음에 1억 평 되는 것을 보여 주신다. 성자는 신부들 때문에 천국에서도 항상 연구하신다. <황금성>도 그냥 막 보여 주면, 너무 크고 좋아서 충격 받고 미쳐서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닐까 봐 점점 조금씩 더 보여 주신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장소가 나오면 “이것은 네 것이 아니다. 공동의 것이다.” 하신다.

104. 어떤 영은 천국에서 ‘남의 집’을 소개받고, 너무 크고 좋아서 충격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안 보여 주고 1차, 2차 차원 높여 인식시켜 주면서 이해하게 하신다.

105. <영>이라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고 놀라고 충격 받는다.

106. <영>은 ‘육’보다 예민하고 뛰어나게 느끼고 깨닫는다. 고로 그리도 감탄한다.

107. <천국을 못 본 자>라도 ‘천국’을 좋게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다. <천국>은 엄청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해서 인간들이 상상한 대로 거의 맞다. 그런데 자기 상상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신비하게’ 상상해야 된다.

<2015년 12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전해 준 잠언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108. <천국의 세계>는 ‘세상’과는 개념이 다르다.

109. <천국의 건물>은 ‘세상 것보다 수억 배 크다.’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천국의 자기 집과 정원>이 ‘지구의 몇 배’나 된다. 그같이 생각해야 ‘천국 집의 크기, 천국의 크기’가 이해된다.

110. <세상>에는 ‘금이나 은으로 지은 집’이 없다. 금칠, 은칠을 할 뿐이다. ‘금으로 지었다고 하는 성당’에 가 보니, 금 70여 관이 들어갔다고 했다. 다 ‘금칠’을 했을 뿐이다. 금 70관이면, 주먹 70개만큼이다. 자기 머리 7개만큼이다. <천국의 집>은 보통 ‘금 10000관’씩 들어서 짓는다. <천국>에서는 ‘보석’을 ‘돌’같이, ‘흙’같이 쓴다. <천국>에는 ‘산’도 다이아몬드로 된 산이 있다. <세상의 것들>을 다 합쳐도 <천국의 작은 산 하나>만도 안 된다.

111. <천국 황금성의 개인 정원>도 ‘육’으로 걸어가려면 100년 가도 못 간다. <휴거 700선>을 ‘크게’ 이루면, 황금성에 ‘우주의 별 하나 크기의 정원’을 얻는다고 생각해라.

112. 치타, 호랑이 등 ‘면적을 많이 사용하는 동물’은 한국 면적만큼 사용한다. 하물며 ‘빛보다 훨씬 더 빠른 영’은 어떨겠느냐.

113. <영>은 ‘빛’보다 빨리 움직인다. 고로 <천국의 크기>도 거기에 맞게 창조해 놓으셨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114. ‘<육>의 활동 범위’에 맞춰 ‘지구’도 창조하셨고, ‘집’도 ‘정원’도 적당하게 꾸미고 살게 창조하셨다.

115. 하나님은 <지구>를 얼마든지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육이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116. <우주의 성운> 중에서 ‘영으로 다니면서 보는 별들’이 있는데, 그 별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으로 가도 수백 년이 걸린다. 지구보다 얼마나 큰지 계산해 보아라. <빛>으로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면, 1초에 일곱 바퀴 반을 돈다. 성운은 <빛>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 수백 년이 걸리니, 얼마나 엄청나게 큰 것이냐. <세상의 성운 하나>도 이리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주>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하물며 <천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이니, 인간들이 사는 곳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왕이 사는 곳도 백성들이 사는 곳보다 비교도 안 되게 크다. <하나님의 세계>는 말해도 이해를 못 하니, 아예 이야기도 안 하신다.

117. <빛>으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약 9조 4천 6백억 킬로미터다.

118.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고 크신지 깨달아라.

119. <지구>가 '인간들이 사는 집'이라면, <우주>는 '지구의 정원'이다.

120. <우주>가 그리 커도 <우주>는 '지구의 정원'이지 '천국의 정원'이 아니다.

121. <천국의 정원>은 '영의 세계'이며 '황금빛'이 찬란하다.

122. <우주>는 영으로 다녀 보면, '죽은 별들'과 '황폐한 유성'으로 가득하다. 위성으로 확인해 봐도 <우주>는 삭막하다. <천국의 정원>은 완전히 다르다. 완전한 곳이다.

123. <천국>은 모든 곳이 100% 완성되었다. 다만 '상 중 하'로 계속 구분되어 있다. <자기 육>이 성삼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의를 행함으로 '천국의 자기 영의 집'을 지어서 천국에 가니, '상급 위치'에 가기도 하고, '그 아래 위치'에 가기도 한다.

124.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모두 '빛'으로 찬란하다.

125. <천국>은 인간들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층만층이다.

126. <천국>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개발되니, 같은 천국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127.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저마다 개발하고 건축하고 산다.

128. <천국>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각자의 휴거 집, 정원, 건물>은 '자기 의, 자기 육의 공력'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129.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듯이, 천국에도 <천국의 핵심지>가 있고 <천국의 우주>가 있다.

130. 구약 영계 : 신약 영계 : 성약 영계 천국이 따로 있다. 안 가 본 자는 모른다.

131. 세상에서도 '자기 재산'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집을 짓는다. 강, 산, 바다 등이다. 천국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인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 갔으니, 그 사람의 공력만큼 그가 좋아하는 대로 '휴거 집'을 지어 주신다.

132. 세상에는 '천국 황금성에 있는 집 같은 집'이 단 하나도 없다.

133. 인도의 8억 명 중에서 최고로 잘사는 자의 집에 가 보았는데, 집만 2000평이었다. 차는 최고급으로만 30대가 넘었고, 문은 금으로 만들어 놓았다. 음식 대접을 해 주어 먹으며 그릇을 보니 모두 비싼 그릇이었고, 일부는 금 그릇이었다. - 하지만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

134. <천국>은 정말 존재하니, 걱정 말고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라!

135. 이단에 속한 자, 비진리를 말하고 믿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 때가 되면 '사망'이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다.

136. 한국에 '이단 종교들'이 많다. 본인들은 절대 이단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다. 그들

중에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이미 ‘사망’에 가 있다.

137.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상>에서는 ‘이성의 생각, 불의, 거짓, 무지’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138. 죽은 후에 <천국>을 아는 자는 무지한 자다. 살아 있을 때 그리 몸부림치고 인생을 투자하면서도 모르느냐.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139. 과일 하나만 사도 썩었는지 확인하고 사는데, <시대 구원자>와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확인하지도 않고 믿느냐. 어리석다. 막연하게 ‘믿기만 하면 되지.’ 하고 믿지 말아라.

140.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보람인지 깨달아라. 그 가치를 모르느냐. 모르면 제대로 못 산다. 모르니 제대로 투자를 안 한다.

141. 평생 ‘잘못된 자를 따라다니는 자들’을 보아라. 너희가 영계에서 보아라. ‘절대적인 진리’를 듣고 배웠으니, 비교해 보아라.

142. 사기꾼에게 투자하고 잘되게 해 달라고 희망으로 산다. 이미 아는 자는 확인하고 말도 안 한다.

143. 사기꾼들은 투자한 것의 2배, 5배를 주겠다고 한다. 투자하면 자기가 절대 책임지겠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소유를 투자하여 희망으로 기다린다. 그리고 어리석으니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사기꾼들은 더 사기를 치려고, 처음에는 투자한 것의 몇 배를 돌려준다. 그리고 소문내게 한다. 사기꾼들은 감옥에 가셔도 연구한다. 그러니 하나님께 묻고 해라. 기도해라. 영적으로 살아라. 분별해라. <지혜>는 ‘분별’이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다. 매일 기도해라. 그러면 사기 당하지 않게 동서남북으로 확인하라고 하신다. 시대 사명자는 매일 사기꾼을 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잡으러 다니는 자도 사기꾼과 같이 행하니 못 잡는다. 고로 하나님께 잡아 달라고 간구한다.

144. 선생은 20대 때도, 또 섭리역사를 펴면서도 사기를 당해 봤기에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씨가 마르도록, 천국의 마병대를 보내서 잡아 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계속 당하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계속 당한다.” 하셨다. 사탄도 사기를 치고 인생들을 꾀고 다닌다. 사탄,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아야 안 당한다.

145. 어떤 여자는 남자의 뽀에 넘어가서 이성 타락을 했다. 왜 뽀에 넘어갔냐고 물으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했다. 그래서 “네가 하와 짝이구나. 하와같이 사탄에게 속았구나.” 했다. 그러나 그 말은 핑계다. 이미 <말씀>을 다 배워 놓고, <하나님의 법>을 다 배워 놓고도 그리 말하는 것이다. <사슴>이 ‘올무’에 얽혔으니, 못 빠져나오면 그대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 ‘목숨 다해 자기 관리’다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핵>은 ‘전체’를 가지고 있다.

2. <핵과 연결된 몸>은 ‘핵’과 같다. 곧 ‘핵의 전개체’다. <전개체>를 보는 것이 ‘핵’을 보는 것이다.

3. 집으로 비유하면, <집의 핵>은 자기가 최고로 많이 쓰는 ‘방’이다. <방의 전개체>는 ‘거실, 부엌 등 집 전체’다. 고로 <집>을 봤으면, ‘핵인 방’을 상징으로 본 것이다.

4. <핵>은 ‘핵으로서 핵’이다. <핵의 확대체>인 ‘전체’를 보아라. 그래야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크게 다 본다.

5. <월명동의 핵 작품>은 ‘야심작’이다. <전개체>는 ‘전체 조경, 산, 물, 길 등 전체’다. <전체>를 봐야 ‘핵’도 보고,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크게 다 보고 느낀다.

6. <핵>을 안 보이고 <전개체>로 보인다. 곧 ‘상징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핵’이다. <핵>인 ‘본체’는 안 보여 주고, <전개체>, 곧 <상징체>인 ‘보낸 자, 그 육’을 통해 삼위일체를 보여 준다.

8. <핵>을 보려 하지 말고, <핵의 전개체>를 보아라.

9. <보낸 자>를 제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보려 하지 말고, <전개체인 보낸 자>를 통해 ‘삼위의 말씀’도 들어 보고, <전체 따르는 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어 보아라.

10. <뇌>는 못 보니, 뇌의 전개체인 <몸>을 보아라. <몸>은 ‘뇌세포, 뇌신경’과 연결되어 있다 <몸>이 감지하는 것을 느껴 보아라.

11. <몸>은 ‘뇌 과일, 하체 과일의 전개체’다.

12. <육>은 ‘혼과 영의 상징체’다. <육>을 보고서 ‘혼과 영의 형상, 모양, 행위’를 보아라.

13. <성령>도 ‘상징체’로 나타나신다. 제1의 상징체는 ‘성령의 사명자, 복직된 하와’이고, 제2의 상징체는 ‘복직된 신부들’이고, 제3의 상징체는 ‘성령을 닮은 행위’다.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만물>도 <사람>도 수고와 고통을 겪으며 투자하여 만들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면서 정이 들고 사연이 생긴다. 그러나 ‘그같이 한 자’만 좋아하고 기뻐하며 이해하지, ‘그같이 하지 않은 자’는 왜 좋은지 왜 귀한지 이해를 못 한다.

2.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수고하고 투자하여 만들고 기른 것>은 마치 차에 시동이 걸리듯이 뇌에 시동이 걸려서 기뻐하고 흥분되어 전심으로 좋아하며 행한다.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 한다.

3. 남녀의 사랑도 그러하다. 서로 좋아하면, 뇌도 몸도 흥분의 시동이 걸려서 작동되어 사랑을 느끼며 행한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못 느끼니 이해를 못 한다.

4. 사람들은 각자 ‘자기 느낌, 자기 기쁨, 자기 흥분 세계’에 빠져 산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것인지, 그것이 나쁜지 감지를 못 한다. 그리고 누가 나쁘다고 하면 이해를 못 한다.

5. 차를 타고 달리면서 스릴을 느끼며 흥분되면, 사고 나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 고로 죽음도 사고도 생각하지 않고, 누가 큰일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한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느끼고 흥분되어 한다. 그러다가 스스로 고통을 당한다.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해를 못 한다.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6. <음식>도 ‘알고’ 먹고, <물건>도 ‘알고’ 사야 된다. 모르고 행하다가 그로 인해 해를 당한다.

7.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벌을 안 주시고 가만히 계셔도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자기가 차를 몰고 한계를 벗어나서 달리면, 누가 벌을 주지 않아도 차가 절벽으로 구르게 된다. 그러면 다치거나 죽게 된다.

8. 하나님은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받는다.” 하셨다.

9. 자기가 <불법과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않으셔도 자기 스스로 ‘화’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기도 한다.

10.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는 일>을 막거나,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악평하거나, 악한 편이 되어 괴롭게 하며 고통을 줄 때다. 그러면 하나님은 먼저 ‘경고’하시고, ‘양심에 가책’을 받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도 주신다. 그런데 ‘한 기간’ 동안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을 자꾸 막고 반대하고 악평하면, 그때는 심판하여 ‘형벌’을 주신다. 그때는 <그 육>이 표가 나게 다치거나 죽기도 하고, <그 영>이 사망으로 선고를 받기도 한다. <영>이 사망의 선고를 받으면 <육>은 봐도 심판받은 표가 안 난다. 그러나 <그 영>은 이미 사망에 던져졌다. 또한 의인들도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늘 앞에 직고하여 심판해 달라고 한다.

11.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런데 이 일을 막거나 못 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게 했을 때는 ‘자기가 받은 권세’로 하나님께 고하여 심판한다.

12. 뱀들도 누가 자기 갈 길을 막으면 도망가기도 하지만, 순간 덮쳐 물어 죽이기도 한다.

13. <달리는 차>를 쫓다가 앞을 막으면 치여 죽는다. <하나님의 역사>도 달려가고 있는데 막으면, ‘막은 자들의 육과 영’이 화를 당하게 된다.

14. <흐르는 강>을 막으니 ‘댐’이 되어, ‘강을 막은 자’가 그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떠다닌다. <하나님의 새 역사>도 그러하다. <새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차원 높여 흐르는 역사’다. 이 역사를 누가 막으랴. 막다가 ‘그 육도 영도’ 화를 당하게 된다.

15. <뜨고 지는 저 태양>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누가 막으랴. <그 행함>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시는데 누가 막으랴.

16.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누가 막으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며 주를 따르는 자들>을 누가 막으랴. <주를 사랑하여 행하며 역사를 뛰는 자들>을 누가 막으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배우고 알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행하여 <차원>을 높이게 된다.

2. <차원을 높인 자>는 이미 ‘그 차원’을 거쳐 와서 안다. 하지만 <차원을 못 높인 자>는 아예 ‘높은 차원’을 모른다.

3. 차나, 집이나, 환경이나, 교육이나, 계급이나, 명예나, 직급도 <차원>이 있다.

4. <새 시대로 와서 차원을 높인 자들>은 이미 ‘그 차원’을 거쳐 와서 안다. 하지만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 차원’을 전혀 모른다.

5. 육계같이 영계도 ‘차원의 세계’다. <낮은 영계에 사는 자들>은 ‘높은 영계’에 가 보지 못했고 ‘높은 영계’에는 못 가 보기에 전혀 모른다. 그러나 <높은 영계에 사는 자들>은 ‘낮은 영계’를 거쳐 왔고, 또 ‘낮은 영계’에는 가 볼 수 있기에 다 안다.

6. 차원을 높일수록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는다.

7. <인생길 삶의 차원>도 ‘개성’마다 다르고, ‘누가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8. 이 세상은 ‘차원의 세계’다.

9. <차원>으로 삶도, 현재도, 미래도 달라진다.

10. <물>은 ‘대지의 높고 낮은 차원’대로 흐른다. 이에 따라 ‘명칭’도 다르고 ‘쓰임’도 다르다.
11.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낮은 데서 점점 높은 데로’ 흐른다. 고로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갈수록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12.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과 성자와 함께 갈수록 ‘차원’을 높이시니, 인간들도 각자 시대적으로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13. <차원 높은 자>를 데리고 ‘새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신다.
14. 전도사, 강도사, 목사 등 차원을 두고 신급을 주는 이유는 ‘교회와 섭리사의 일들’을 각각 분담하여 체계 있고 질서 있게 진행하게 하기 위한 제도다. <신급 차원>도 때가 되면 높여야 되지만, <영적 차원>을 높여야 된다. <영적 차원>이란, 믿음·사랑·말씀·생각·행위·신령함의 차원이며, 의를 행함과 공적의 차원이다. 혼과 영을 변화시켜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15. 육과 혼과 영이 ‘주와 일체 되는 것의 차원 높이기’다.
16. ‘말씀, 증거, 가르침, 주 증거, 생명 관리의 차원 높이기’다.
17.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대화하는 것의 차원 높이기’다.
18. ‘형제들을 대하는 것의 차원 높이기’다.
19. ‘말과 행실, 생각의 차원 높이기’다.
20. ‘기도, 교육, 계시의 차원 높이기’다.
21. ‘방법의 차원을 높이고, 신부로서 정결함의 차원을 높이기’다.
22. ‘신앙 경영, 사업 경영, 교회 성전의 차원 높이기’다.
23. ‘예술 차원, 찬양 차원, 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것 차원을 높이기’다.
24. <차원을 높이지 않은 자>는 <차원 높은 자>를 못 따라간다.
25. 매일 연구하고 노력하며 ‘자기 관리 차원’을 높여라.
26. 매일 배워라. 사람은 배우고 알아야 ‘차원’을 높이게 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배우는 대로 반응한다.
27. <차원 낮은 자>가 교육하고 인도하면, 그 교육을 받은 자들도 ‘같은 차원’에 처하게 된다.
28. <차원 높은 자>가 교육하고 인도해야 모두 ‘높은 차원’으로 오른다. 오직 ‘주의 가르침, 주의 교육’이다. 그리고 ‘오직 주 뜻대로 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기도.
29. 차원을 높여 ‘자기라는 인생의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속도를 내어 전진한다. 차원을 높이지 않은 자는 못 따라간다.
30. <신앙의 차원>을 높여서 행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 삶’이다.

31. <제자리 삶, 늘 그 위치의 삶>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32. <육>으로 사는 자는 1차원의 삶, <혼>으로 사는 자는 2차원의 삶, <영>으로 사는 자는 3차원의 삶이다.

33. 차원 높이지 않고 <걷는 자>가 어떻게 차원 높여 <뛰는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34. <육으로 하는 자>가 어떻게 차원 높여 <혼과 영으로 하는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35. <자기 혼자 하는 자>가 어떻게 차원 높여 <성삼위와 주를 앞세우고 함께 하는 자>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힘도 지혜도 못 따라간다.

36. <마음과 생각>으로 차원 높이고, <행함>으로 차원 높이기다.

37. <차원 높인 자>는 자기만 알고 말도 못 하고 간다. 이는 말해 줘도 <차원을 안 높인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차원>에 있어야 ‘대화’도 통하고 ‘행실’도 통하고 ‘삶’도 통한다.

38. 어떻게 해야 차원을 높이는지 ‘이론’으로만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너도 ‘행하여’ 올라가라. 그래야 안 가르쳐 줘도 ‘그 차원’에 올라갔으니 보이고 들리게 된다.

39. 성령님은 ‘높은 차원’에 계신다. 성령님께 “내게 와 주세요.” 하지만 말고, 네가 ‘성령님이 계신 차원’으로 올라가 보아라. 그 차원으로 가면, 너도 ‘차원’을 높이게 된다.

40. 때가 왔는데도 <자기 주관권 세계>만 고집하던 자들은 ‘구시대’에서 살다가 죽고, 그 영도 ‘구시대 영계’로 가거나, 혹은 그 행위대로 ‘사망’에 처하기도 한다.

41. 세상에서 ‘육’이 알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성령과 성자와 주와 함께 행한 대로 ‘영계의 영의 위치’도 결정된다.

42.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차원을 높여 <구원역사>를 펴시고, 최고로 차원 높여 <휴거 역사, 신부 역사>를 펴신다. <이를 알고 행하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최고 차원 높은 인생’이 되어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말고 자부심으로 살아라.

43. <하나님이 땅에서 차원을 높여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뜻>은 ‘천국 황금성’에 가셔도 영원히 지속된다.

44.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더 이상적인 것’을 얻을 수 없다. 계속 그 주관권에 있기 때문이다.

45. <차원을 높이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기획>가 있다.

46. <차원>은 순간 ‘높이뛰기’ 하듯 높이는 것이 아니다. ‘매일 행하다가’ 차원을 높이게 된다. <넷물>이 흘러가서 <강>에 이르러야 넷물이 강물과 합류되어 ‘강’으로 차원을 높이게 된다. 이와 같이 ‘열심히 하면서 커 가면서 차원을 높이기’다.

47. 크면서 차원을 높여야 차원을 높이게 되고, 받을 것을 받아도 다스리며 가치 있게 쓰게 된다.

48. 크지도 않고 차원을 높이지도 않았는데 주면, 가치성을 모르니 뺏기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

49. 나무를 키우듯, 곡식을 키우듯, 열매를 키우듯 <자기 자신>을 꾸준히 키워라. 그러면 변화되면서 차원이 높아진다. 꽃이 피고 크다 보면 꽃이 지고 열매가 되고, 열매가 크다 보면 완성되어 색이 변화되고 ‘추수할 과일’로 차원을 높게 된다. 이와 같이 ‘행하면서’ 차원을 높여라.

50. 나무도 클 때 퇴비하고 관리해야 크다. 때 지나면 퇴비를 해도 못 받아들이고 못 크다.

51. 나무같이, 열매같이 ‘클 때’ 미리 퇴비하고 키우면서 차원을 높이기다.

52. 나이가 들면 때도 지났고 힘도 들어서 차원을 못 높인다. ‘행해야’ 차원을 높이는데 힘이 약하니 못 한다. 또 차원을 높이더라도 ‘쓸 날’이 적다. 고로 ‘빨리’ 차원을 높여야 된다.

53. 늦기 전에 차원을 높이기다.

54. 빨리 차원을 높여야 얻고, 누리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쓴다.

55. 급할 때는 서두르면서 뛰어야 된다.

56. 한계가 오면 불가능하게 된다. 이때 차원을 높이면 ‘다른 차원’으로 가서 행하게 되니,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된다.

57. <그 주관권>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때 ‘차원’을 높이면, <그 주관권>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고로 문제가 해결된다.

58. <차원을 높이는 것>은 ‘문제의 답’이다.

59. <휴거>로 차원을 높이니, ‘과거 구시대의 고통’이 해결됐다. 이제 ‘이 시대로부터 오는 고통과 어려움’이 남아 있다. 역시 또 ‘차원을 높이기’다. 그리함으로 ‘황금성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어진다. 다만 <영>이 휴거됐어도 <육>은 살아 있으니, ‘육신이 인생을 살 동안에 받는 것들’이 있다. 이는 존재해야 하기에 거쳐 가는 것일 뿐이다.

<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60. <휴거의 차원>을 높여라. 그렇지 않으면 <휴거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

61. 걷기 - 뛰기 - 경주하기 차원이다. 자갈 - 돌 - 바위 차원이다. 자전거 - 자동차 - 비행기 차원이다. <한 차원> 높이면, 딴 세상이다. 상상도 못 하는 일이 일어난다.

62. <자기 차원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희망의 삶’이 사라진다.

63. <생각의 속력>을 내고 <행동의 속력>을 내라.

64. 올림픽경기에 나가서 자기와 겨루는 자들을 다 이기면 금메달을 따듯,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한 차원씩 높아야 이긴다.

65.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개성대로 <신앙의 메달과 상>을 받고 <휴거 주관권의 메달과 상>을 받는다.

66. <월명동 자연성전>을 개발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공터를 찾아서 그때마다 모여 쓰고 떠나는 식으로 ‘신광야 차원의 삶’을 살면서 역사를 펴 나갔다. 차원을 높이기 위해, 힘들지만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자연성전>을 개발했다. 이제는 ‘가나안 땅, 시대의 에덴동산’을 만들어 최고로 차원을 높였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성령과 성자와 함께 개발했다. 이제는 ‘쓰는 것의 차원’을 높여서 써야 된다.

67.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한 번’에 차원을 높인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돌을 쌓고, 땅을 다듬고, 고치고, 나무를 심고, 그때마다 할 일을 하면서 한 가지씩 행하면서 점점 차원을 높이며 왔다. <신앙>도 이렇게 차원을 높여라.
68. 계단도 ‘한 번’에 오르느냐? ‘하나씩’ 오르면서 목적지에 가는 것이다. 산도 ‘한 번’에 오르느냐? ‘조금씩’ 오르면서 정복하는 것이다. - 계단 오르듯 ‘단계별’로 차원을 높여라.
69.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 ‘돌과 나무’를 갖추지 않았다면, 차원을 높이지 못했다. - 신앙의 차원을 높일 때도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
70. 주 자료, 말씀 자료, 개인 기도 자료, 감사 자료, 사랑 자료 등이다.
71. 좋은 차만 산다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만큼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세금도 내고 기름도 채우면서 운영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좋은 차원>을 얻고 살려면, 뛰고 달리고 열심을 내서 행해야 된다.
72. 성자는 떠나시면서 각자에게 <휴거 300선>이라는 ‘최고 좋은 차’를 사 주고 가셨다. 그런데 ‘이 차를 운영하는 자들’도 있고, ‘차를 운영하지 못하여 그냥 세워 놓은 자들’도 있다. 더러는 ‘차를 놔두고 주관을 떠난 자들’도 있다. 이 차는 다른 자가 차지한다.
73. <휴거 300선의 좋은 차>를 받았어도 ‘운영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육>이 차원을 높이며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74. <휴거를 버리고 나간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성령께 기도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린 자가 뭘 알겠느냐. 모르니, 모르는 세계로 간 것이다.” 하셨다.
75. <최고 급 700선 휴거>를 각 사람의 차원대로 꼭 이뤄야 된다.
76. <가치성의 차원>을 높여라. 가치를 모르면, 주와 같이 황금성에 못 간다.
77. 천 리 길을 가는데 걸어서는 못 가니 ‘차’를 타고 가라고 ‘큰 차’를 사 뒀더니, <가치>를 모르고 그 차를 팔아서 자기가 먹고 쓰고 즐기는 데 써 버린다. 천 리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할 텐데, ‘타고 가라고 준 차’를 팔아 버렸으니, 걸어가면서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맞고 가야 된다. 그러나 걸어서는 갈 수 없다. 결국 다시 <조건>을 세워서 ‘작은 차’라도 사서 가야 된다.
78.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귀히 쓰고 다스려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아픈 자>에게는 ‘그에 해당되는 약초’가 보화다. 그러나 <건강한 자>에게는 보화가 아니다.
2. <만물의 보화>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보화’다.
3. <자기에게 필요한 보화>를 찾아라. 남들이 <보화>를 다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는 보화가 아니라서 버린 것도 있다. 그것이 ‘너’에게는 보화가 되기도 한다.
4. <보화>는 멀리 있지 않고 ‘네 뇌와 생각’에 있다. 먼저 ‘네 생각’에서 보화를 찾아라. 그래야 ‘땅’에서도 보화를 찾는다.
5. 시를 짓는 것도, 노래를 짓는 것도 ‘보화’다. 먼저는 ‘생각’으로 얻는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하여 시도, 노래도 나

온다. - 만사의 모든 것이 이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러하다.

6. <때>는 '번개'같이 오지 않는다. 하루하루 서서히 왔다가, 하루하루 서서히 간다.

7. <때>는 '저 태양'같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 주며 말해 준다.

8. <때>는 쉬지 않고 오고, 쉬지 않고 간다. <때>는 '한 기간'이다.

9. <때>는 '과정 중'에 존재하기 때문에 <때>는 '번개'치듯 오고 가지 않는다.

10. <주>는 재림 때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는 것같이 왔다 간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신속하게 빠르게 행하여 주를 맞아라.' 하는 교육의 말씀이지, <주>는 그렇게 빨리 왔다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간 왔다 간다면, '느린 욕을 가진 인간'이 언제 준비하고, 언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언제 성장하고 변화되며, 언제 영 변화까지 이루어 주를 따라가겠느냐. <주>가 와서 '그 사람'에게 '홀연히 번개같이 나타난다.'라는 말이다. <주>가 오면 한 세월, 한 시대의 기간 동안 그 시대 역사를 펴고, 때가 되면 간다. 하나님이 오셔도, 성령님과 성자가 오셔도 <이 땅>에서 역사를 펼 때는 '인간'을 통해 행하시니,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자녀가 크면 결혼을 시키면서 각종 할 일을 하듯, 그리하신다.

11. 성경에 말씀한 것은 '말한 자의 입장과 처지'를 깨달으면서 읽어야 이해가 간다.

12. 외국에 나간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비행기 타고 순간 가니까 기다려. 비행기가 새같이 날아가니 금방 간다. 번개같이 간다. 한 번도 안 쉰다." 했다. 어린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뛰어나가 공항에서 부모를 기다렸다. 그런데 한 시간, 두 시간, 다섯 시간, 일곱 시간을 기다려도 안 왔다. 그래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한참 있으니, 엄마와 아빠가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온 후 공항에서 짐을 찾고,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부모는 '번개같이 금방 간다.' 했지만, <오는 자>도 밤이 가고 해가 뜨듯 왔고, <기다리는 자>도 밤이 가고 해가 떴을 때 맞았다.

13. 하나님은 <때>를 '한 기간'으로 정하시고, 시간은 순간순간 지나가니 재촉하셨다. <재림>도 <휴거>도 '순간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경에는 "홀연히 휴거된다. 주가 순간 번개같이 왔다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 말한 자들은 '재림을 맞고 휴거된 경험자'가 아니다. '재림과 휴거의 시대에 해당되는 자'도 아니다. '예언자'다. <재림과 휴거에 해당되는 자들>은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고 주가 왔을 때 주를 맞을 자들'이다.

14. 신약 때 "주가 곧 온다." 했다. 그런데 2000년 신약역사 후에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곧 온다고 말했다. 늘 긴장하고, 주를 맞기 위해 씻고 닦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고 그리 말한 것이다. <재림>을 맞게 하기 위해 모두 준비하고 예비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살다 간 자들은 죽어서도 <영>으로 계속 '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2000년 동안 기다렸다.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주'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주'가 오면, 육계에서 맞듯 영계에서도 영들도 맞고 따른다.

15. <기도>와 <대화>는 다르다. <기도>는 혼자 해도 되지만, <대화>는 혼자서는 못 한다.

16. 대화한 다음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한 다음에 대화하기도 한다.

17. <믿고 사는 신앙>과 <같이 생활하는 신앙>은 다르다.

18. <믿는 것>은 '그 주권권에서 사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은 '결혼해서 사는 격'이다.

19. 너는 성삼위와 주를 믿고 그 주권권에서만 살고 있느냐. 결혼하여 사랑하며 같이 살듯 성삼위와 주와 같이 살고 있느냐. - 이에 따라 너의 '삶의 질'도 달라지고 '영의 질'도 달라진다.

20. 하나님은 ‘인간들의 삶’을 이해하실 뿐이지, 실상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

21.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가까워진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귀’로 만드는 게 아니다. ‘행동’으로 만든다.

2. 인간은 ‘육’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니 <천국>에 오라고 해도 못 가고, <영의 음식>을 대접해 줘도 못 먹는다. 고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하나님 궁>에 불러서 대접해 주신다.

3. <육>은 ‘육계’에서 하고, <영>은 ‘영계’에서 해야 된다.

4. <영>이 휴거됐어도 <육>이 살아 있으니, <육>은 ‘이 땅’에서 ‘자기 삶’에서 ‘휴거의 삶’을 살면서 누려야 된다.

5. <흐르는 물>은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은 못 믿는다. ‘끝까지 행하는 자’만 믿을 수 있다.

6. 복한을 보아라. 순간 변하여 이렇게 행하다가도, 지금은 또 다르게 변하여 저렇게 행하고 있다. 그것을 보니,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며 표적이었다. (2015년 8월에 있었던 일)

7.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다.

8. <그리도 큰일>을 ‘삼위’가 아니면 누가 행하겠느냐. 고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 행하시도록 기도해라.

9. <시대 복음>을 전해야 온 세상에 ‘전쟁’이 없게 되고 ‘무기’도 없어지게 된다.

10.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부적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 사랑’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셨다. 곧 ‘인간의 육과 영’이다. 인간의 <육>을 통해 <영>을 ‘하늘나라 형제’로 변화시켜 ‘천국’에 오게 하여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자기들보다 더 높은 <사랑의 대상체>를 창조하니, ‘천사장 루시엘’은 ‘인간 창조’를 반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하니, 하나님은 ‘루시엘’을 세상으로 쫓아내셨다. 그러나 거기서도 ‘인간’을 꾀어 타락시킴으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고, 때가 되니 <구원역사>를 시작하셨고, ‘구약과 신약’을 거쳐 ‘마지막으로 뜻을 완성하는 <성약역사>를 시작하시어, 전능자를 마음껏 사랑하며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함으로 천국에 ‘영원한 사랑의 나라, 최고 급 황금성’을 세워 <휴거된 영들>을 불러와 살게 하셨다. <그 육>도 ‘휴거의 삶’을 살게 하셨다.

11. <하나님의 역사>라도 ‘구시대 사람들’을 데리고서는 ‘만족한 사랑’을 할 수가 없었다. 고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시작하시어 ‘신부의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들이 성삼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만큼 ‘그 영’도 변화되게 하셨다. 때가 되어 <변화된 영들>을 휴거시키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 신부들의 세계, 황금성>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그러나 <구역사>는 <새 역사>를 그렇게 반대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새 역사>를 ‘머리’로 삼으시고, 구역사와 쪼개서 역사를 펴 나가신다.

12. <만족>하지 못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만드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만족하게 하여라. 핵은 ‘사랑’이다.

13. 불러서 ‘행할 기간’을 줘도 못 하면, 하나님은 ‘다른 자’를 불러서 하신다. <사랑>도 만족하게, <사명>도 만족하게, <할 일>도 만족하게, <신앙>도 만족하게 하여라.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4. <사랑>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사랑> 때문에 불행해진다.
15. 결혼하면 부부는 '접붙인 나무'와 같다. 고로 평생 한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고로 잘못하면 불행해진다.
16. <사랑하는 것>은 '밥 먹듯 하는 것'이 아니다.
17. 사랑하면 극치의 자극을 느끼기도 하고, 극치의 힘이 소모되기도 한다.
18. <육의 사랑>을 하면,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고, 남자는 여자에게 매인다.
19. <밥>은 영양분을 받으면서 맛을 느끼지만, <육의 사랑>은 극치의 영양분이 빠져나가면서 사랑을 느낀다.
20. <얻은 자>는 행복하고, <잃은 자>는 불행하다.
21. <알고 벗어난 자>가 행복하다.
22. <모르고 벗어난 자>는 행복한 삶이어도 행복을 못 느낀다.
23. <행복 속>에서 '불행'을 깨달아라.
24. <행복 속의 불행>을 깨닫고, 아예 그런 곳으로 안 가는 자가 행복한 자다.
25. <사람>이 '죄'를 짓는다. 고로 '죄'만 싫어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죄'만 싫어해야 된다.
26. <성격> 때문에 <사랑>도 깨진다.
27. <성격>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진다. '사람'은 싫어하지 말고 '그 성격'만 싫어해야 된다. '그 성격'을 고치면 된다.
28. <성격> 때문에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니, 사랑하다가도 헤어지는 것이다. '성격'만 고치면 된다.
29. <차>는 좋은데 <고장 난 부분> 때문에 '그 차'까지 싫어하여 버리면 안 된다. '고장 난 부분'을 고치면 된다.
30. <단점> 때문에 <좋은 것>까지 버리게 된다.
31. <단점> 때문에 <그 사람>까지 버리지 말아라. '그 단점'만 버리게 하면 된다.
32. 월명동도 처음에는 <단점> 때문에 싫어하여 버리려 했다. 그러나 <단점>을 고치니 '천국 같은 환경'이 됐다. - 인생도 그러하다.
33. 물건도 <단점> 때문에 안 사게 된다. 그것을 고치면 새것이 된다.
34. 돌을 살 때도 그러하다. <멋있는 돌>인데 '단점'이 길이가 40cm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1m가 돼야 하는데 아쉽다. 그러면 60cm짜리 돌을 사다가 결합시켜 놓으면 된다.
35. <단점>만 보고 버리면 안 된다. <단점>을 보완하면 빛난다. - 사람도 그러하다.

36. 환경도, 물건도, 존재물도, 인생도 <단점> 때문에 버리게 된다.
37. <단점>이 없는 것은 없다. 단점을 보완하고 고치면 된다.
38. 결혼한 자들도 같이 살면서, 서로 단점이 있다고 외면하고 살면 못 산다. 그러나 서로 고쳐야 행복해진다.
39. 결혼하면, '인간 급 사랑의 핵 융합'이 이루어진다. 고로 상대를 피하지 못한다. 외면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에게 매이게 된다. 하기 싫어도 '대상'이 있으니 해야 된다.
40. 결혼 안 하고 하늘을 위해서만 살면, <성삼위>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 '하늘 급 사랑의 핵 융합'이 형성된다. 영원한 행복이다. 또한 '땅의 대상'이 없으니 안 매이고 '하늘 일'을 한다.
41.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매인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지 않았다.
42. 남자는 여자를 묶고, 여자는 남자를 묶는다. 묶어야만 서로 같이 살기 때문이다.
43.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을 두고, 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된다. 고로 피곤하고 힘들다. 서로 맞춰야 행복하다.
44. 결혼 안 한 자들은 '대상'이 없으니 자기가 다 한다. 땅에서는 맞춤 대상이 없으니, 그 힘을 가지고 하늘과 맞추어 살면 된다.
45. <고물상 주인>은 '고물'도 다 쓴다. 다른 사람들은 '고물'은 안 쓴다. <나>는 '고물상 주인'이다.
46. <고물>로 '낫'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어 새것이 되게 하면 된다.
47. 남녀는 서로 사랑하는 만큼 느낀다.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48.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만큼'만 느낀다.
4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사랑하는 만큼'만 만사의 모든 것들을, 영적 사랑을, 영원한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며 기쁨을 주신다.
50. 깨달아야 느끼고, 행해야 느낀다.
51. <이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만 느낀다.
52. <주>를 만났어도 제대로 깨닫고 아는 자만 '그 차원의 세계'를 느낀다.
53. <자기 사명>도 귀한 것을 깨닫고 행할 때 '보람'을 느낀다.
54. 가만히 있으면 못 느낀다.
55. <바람>이 안 불어도 '뛰면' 바람을 느낀다.
56. <뛰는 자>가 '바람'을 더 느낀다. <뛰는 인생>이 보람도 기쁨도 행복도 더 느낀다.

57. 세상에는 ‘기쁨과 희망을 느끼고 얻을 만한 것’이 수만 가지다. <육의 사랑>만이 최고 극치의 기쁨이 아니다. 그것은 수만 가지 기쁨 중의 하나이고, 그리 높은 수준의 사랑은 아니다.
58. <영원한 것>은 ‘느끼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다.
59.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차원대로, 자기 수준’대로 행하고 느끼고 얻으면서 살아간다.
60. <차원 높은 자>는 ‘그 밑의 수준의 것’을 보면 기쁨도 흥분도 못 느낀다.
61. <어린이>는 ‘높은 나무의 매미’를 찾아서 잡아오면 쾌감을 느끼며 보러 오고, <어른>은 사냥하여 ‘산돼지’를 잡아오면 흥분되어 쾌감을 느끼며 보러 온다.
62. <전능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최고 극치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산다. 그와 함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행하면, 기쁨 흥분되어 살게 된다.
63. 다른 사람들은 흥분되어 기쁨 미친다 해도 <차원 높은 자>는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간다. ‘고급 세단’ 앞에 ‘장난감 차’ 같은 격이기 때문이다.
64. <이 세상의 것>은 ‘하나의 환상’과 같다. ‘먹으면 끝나는 하나의 음식’과 같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며 희망이 차올라서 산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원한 실체’다. 영원하다.
65. <이 세상의 것>은 ‘꽃’과 같아서 피고 지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은 ‘열매’와 같아서 먹고 누린다.
66. <밭에 깊이 묻힌 보화>가 “나 여기 있다.” 소리 쳐서, 그 소리를 듣고 보화를 찾는 자는 세상에 없다. ‘찾아다니는 자, 찾고 밭을 깊이 가는 자’가 찾게 된다. <구원할 자>도 그러하다. “나 여기 있으니 구원해 줘요.” 하지 않는다. 찾아다녀야 찾게 된다.
67. <사랑하는 자>도 ‘찾는 자’가 찾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찾는 자’가 찾게 된다. <구원자>도 그러하다.
68. <찾는 자>만 찾게 된다.
69. <찾는 자>만 그 원리와 이치를 알고 찾고, 다음 것도 또 찾는다.
70. 목적인 것을 찾는 과정 중의 기쁨, 찾은 기쁨, 찾은 후에 보는 기쁨, 쓰는 기쁨이다. - 그러나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셔야 기쁨이 제일 크다.
71. 사랑하는 자가 줬느냐, 친구가 줬느냐, 아는 자가 줬느냐 등 누가 줬느냐가 중요하다. <준 것>은 ‘그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72. 성자는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서 내게 ‘붓’을 주셨다. 그 붓은 ‘시대 말씀’이었다. - 성자에게 ‘붓’을 받아 수만 편의 말씀을 받았고, 수만 편의 잠언을 받았다. 받으면 받은 표가 난다.
73. <신비한 것>을 봐야 ‘신비한 것’을 느끼고 기쁨 흥분된다.
74. 꿈에 ‘나와 여자 한 명’이 한편이 되어 상대와 배구 경기를 했다. 상대는 모두 ‘남자들’이었다. 막판에 내가 서브를 넣었는데, ‘공중에 높이 뜬 볼’이었다. 그 공이 내려와서 ‘네트 중앙’에 맞고 ‘상대의 목’에 맞았는데, 공의 힘이 너무 세서 ‘상대의 목’을 계속 돌면서 감고 있었다. 상대는 공이 손에 안 잡히니 당황했다. 그런데 <공>이 ‘끈’이 되어 ‘상대의 목’을 푹푹 매어 감았다. 상대는 그 줄이 목에 감겨 힘들게 풀고 있었다. 나와 내 편인 여자는 “세상에 저런 꼴이

어디 있냐!” 하며 배꼽을 움켜쥐고 웃고 있었다. 이것을 보고 우리와 겨루던 자들이 기분 나빠했다. 그들은 ‘프로 선수’였기 때문이다. 상대는 화가 나서 공을 세계 치며 서브를 넣었다. 그런데 라인을 벗어났고, 우리 둘은 또 웃어 대며 경기를 끝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잠언을 썼다. (이 잠언을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해 주었다.)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걱정하시지 않게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된다.
2. 끝까지 해야 의문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고, 무지도 풀리고, 답도 받고, 사연도 알고, 그동안 손해 간 것도 얻는다.
3. 끝까지 삼위일체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다.
4. 끝까지 주를 믿고 행하기다.
5.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다. 그 안에 모든 계획이 질서 있게 다 들어 있다. 그 계획대로 역사해 나가신다. 그러나 ‘끝’에 모든 것을 주신다.
6. 하나님은 ‘끝’을 벗어나서 주지 않으신다. <시작할 때>는 ‘조금’ 주시고, <중간부터> ‘조금 더’ 주시고, <끝나기 전>에 ‘점점 많이’ 주시다가, <끝장>에 ‘최고의 것’을 주신다.
7. 다 하고 끝났을 때, 끝까지 다 겪고 나면 ‘각종 것’을 얻게 된다.
8. 월급도 일한 다음에 끝에 가서 받는다.
9. 어떤 일을 하든지 ‘각종 고난·역경·문제들’은 <처음>에도 있고, <과정 중>에도 있고, <끝>에도 있다. 그러나 <끝>에 ‘고난·역경·문제들’이 더 많다. 그러나 <끝>에서 ‘모든 의문과 오해’가 풀리고, ‘수고의 대가’를 받고, ‘그동안 손해 간 것’을 얻게 된다.
10. <그동안 수고한 것의 대가>는 ‘끝’에 가서 받는다. 고로 끝까지 해야 된다.
11. 끝까지 해야 걱정이 안 된다.
12. <처음>에 약하기도 하고, <중간>에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각종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끝까지’ 하기만 한다면, 근본적으로는 걱정이 안 된다.
13. 끝까지다. 단! 좋으면 끝까지, 문제가 없으면 끝까지, 환난이 없으면 끝까지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주와 같이 끝까지’다.
14. <구원>도 ‘끝까지 행하며 견디고 이기는 자’가 받는다.
15. <처음>에는 주를 믿고 따랐어도 <끝>까지 안 믿고 떠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16. 휴거됐어도 <끝>까지 휴거의 삶을 살지 않으면, 휴거를 상실한다.
17. <집>도 짓다가 말면 쓸 수 없다. 끝까지 다 지어야 쓴다.
18. 올림픽 때 각종 경기에서도 ‘끝까지 한 자’만 인정하고, 그 안에서 메달을 준다. ‘끝까지 하여 승리한 자’가 메달을 얻게 된다.

19. <끝까지 주와 함께 행한 자>가 휴거되어 황금성을 얻는다.

20. <처음에는 잘했어도 환난과 어려움으로 쓰러지고, 자기 본능·자기중심으로 행하며 산 자들>은 끝까지 오지 못하고 오다가 말았다. 고로 ‘의문과 오해’만 남게 되었다.

21. <끝까지 따라온 자>가 ‘성경의 의문’을 풀고 ‘휴거’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다음 차원으로 가고 있다.

22.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자기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23.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높여 주신다.

24. 하나님은 기어이 기필코 뜻을 이루신다. 고로 하나님의 뜻을 두고 뛰고 달리며 억울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와 같이 끝까지 한다면, 결국 의문도 풀리고, 오해도 풀리고, 손해 간 것도 얻는다. 끝까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다.

25. 불신자, 악평자, 누명을 씌우며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다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끝까지 모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변함없이 행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이루고 말았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도 풀고, 의문도 풀리고, 그동안 해를 당하고 손해 본 것들도 다 받았고, 악평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충성자들의 사연도 풀리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을 다 받게 되었고, 생명들을 살리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었다.

26. 환난·핍박·억울함·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안 믿어진다고 하며 안 믿고, 각종 문제로 따라오다가 만 자들은 <역사의 광야 노정>에서 쓰러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신 엄청난 영원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억울한 자들’이 되었다.

27. <끝까지 오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의문’을 풀지 못하고, ‘오해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각종 문제’로 번민하면서 산다.

28. <끝까지 오지 못한 자들>은 ‘의문·오해·문제·억울함·고통’으로 끝났다. ‘답’을 모르고 끝났다.

29.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이기고, 형제끼리 부딪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며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행해라. 끝까지 가면 걱정할 것이 없다. <끝>에서 모든 의문과 오해가 풀리기 때문이다.

30. <형제>끼리 부딪혔을 때는 ‘주와 일체’ 되면 절대 해결된다. <주>를 찾지 않고 일체 되지 않으니, <이성이나 사람>을 의지하여 인성으로 빠지고, 그로 인해 힘든 일이 더 닥치어 죄를 범하고, 더 함정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31. <주와 일체 되지 못한 연고>로 그리도 힘든 것이다.

32. 어떤 일을 당해도 ‘주와 일체’ 다. 그래야 ‘어떤 일’이든 다 이긴다.

33. <주>와 부딪혔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고해라. 꼭 자기 상황을 삼위께 고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34. 형제와 부딪히고 주와 부딪혔다고 외롭다고 하며 ‘사랑의 대상’을 찾아다니느냐. 지극히 ‘이성의 본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함정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이다.

35. <끝까지 안 하는 자>는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다가 말고 길거리에서 자는 자와 같다.

36. <끝까지 안 하는 자>는 답을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의문을 품고 짐을 지고 살게 된다. 억울하게 끝난다.

37. 기빠도 주와 함께, 슬퍼도 주와 함께, 잘돼도 주와 함께, 억울함을 당해도 주와 함께, 쓴 잔을 마셔도 주와 함께, 어려움을 당해도 주와 함께다. 늘 주와 함께 땀 흘려 뛰고 달리기다. 이렇게 하는 자가 ‘휴거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자다. 고로 주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38. <월명동>도 끝까지 했기에 ‘성약역사 하나님의 대(大)자연성전’을 건축했다.

39. 월명동은 쉽게 산 땅이 하나도 없다. <하나의 땅>을 살 때마다 ‘수십 번씩’ 어려움을 겪었다. 과정 중에 문제도 많았고, 정말 힘들기도 했고, 일이 잘 안 풀리기도 했다. 그렇다고 끝까지 안 했으면, 안 되는 것이 뜻인 줄 알고 꼭 살 땅을 못 사고 끝나 의문을 풀지 못했을 것이다. 끝까지 했더니, 결국 ‘핵심지’는 다 샀고 개발도 했다.

40. <하다가 마는 자>는 ‘중단한 데’서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끝난다. 그리고 남에게도 그같이 말하고 가르친다. 그 말은 ‘중단한 데’서 보고 판단했기에 ‘답’이 아니다.

41. <월명동 개발>을 하다가 말았으면 하나님의 시대 비밀도 못 풀고, 의문·오해·섭섭함으로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다 ‘하나님의 구상’도 못 받고 지옥 같은 고생을 하면서 개발을 했을 것이다.

42. 오직 성삼위를 붙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상대로 끝까지 하니, 월명동은 이 시대에 ‘성삼위를 모실 자연성전, 하늘의 궁’이 되었다.

43. <야심작>도 ‘다섯 번’이나 무너졌다. 하다가 중단했다면 ‘하나님의 구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의문으로 끝났을 것이다.

44. 처음에는 ‘좋은 돌들’이 없어서 ‘막돌’을 가져다 <야심작>을 쌓았다. 그런데 돌이 ‘다섯 번’이나 무너지면서 그 기간 안에 ‘크고 좋은 돌들’이 많이 들어왔고, ‘막돌’을 가지고 돌을 쌓으면서 스스로 ‘돌 쌓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었다. - <기술과 자료>가 있으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야심작’을 완성하게 하셨다.

45. 여섯 번째 쌓을 때 하나님은 <야심작 중간>에는 돌을 ‘세워서’ 쌓지 않고, 반반한 면을 위로 올라오게 하여 ‘눅혀서’ 쌓도록 여건을 트셨다. 그래서 <야심작 아래와 중간>에는 좋은 호피석을 ‘눅혀서’ 의자처럼 앉기 좋게 쌓았다.

46. <야심작 위쪽>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돌을 부챗살같이, 병풍같이 ‘세워서’ 쌓았다. 그렇게 하니 <야심작 상단부>가 아주 멋있었다.

47. 여섯 번째 돌을 다 쌓은 후에 보니, 돌을 다섯 번째 쌓았을 때 <야심작 중간>에 ‘큰 소나무들’을 심기도 했는데 병들어 다 죽어서 그쪽에는 ‘소나무’도 없었다. 그런데다 <중간>에 ‘돌’까지 눅혀서 의자처럼 반반하게 쌓았으니, 가운데가 험하니 볼거리가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중간에 눅혀서 반반하게 쌓은 돌 몇 개’를 빼내고 세워서 쌓으려고 ‘어디 뽕 만한 돌 없나?’ 하고 돌아다녔다. 그런데 혹여 ‘돌 몇 개’를 빼면, <야심작 위에 세운 돌들>이 곧 무너질 것만 같았다. 너무 두렵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다. 그때 하나님께 말하니, “이제 됐다! 됐어!” 하는 느낌이 왔다.

48. 그래도 운동장에서 <야심작>을 볼 때마다 ‘보암직’하지 않고 ‘꺼림칙’했다. 그래서 ‘87톤짜리 큰 돌 두 개’를 <중간>에 세우려고 했다. 그러다가 <야심작 하단부 좌우>에 세웠다. 좌우에 이 돌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좋아! 멋있어!” 하셨다.

49. 성자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매일 깊은 대화를 했는데, 그때 <야심작의 비밀>을 밝히셨다. “이것은 최고 깊은 비밀이야. <하나님의 최고 야심작>인 ‘백보좌’를 상징하여 만들었다. 걸작이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야심작>을 보니,

선연히 ‘의자 형상’이 보였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숨이 거의 끊어지려 했다. “으앗! 세상에 백보좌 상징이라니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감탄했다. 이렇게 감탄하니, 삼위일체는 매우 기뻐하셨다.

50. <야심작>을 쌓기 시작하고 ‘18년’ 만에 ‘야심작 의문’이 다 풀렸다.

51. <돌을 눕혀 반반한 면으로 쌓은 하단부와 가운데>는 ‘의자 바닥’이고, <돌을 뽀족하게 세워서 쌓은 야심작 상단부>는 ‘의자 등받이’이고, <좌우 아래에 세운 87톤 바위>는 ‘의자 손잡이’다.

52. <야심작>은 ‘백보좌 상징’이다. ‘상징’이니 초상화 같지 않아도 이미지와 형체만 나타내면 된다.

53. 야심작 왼쪽 손잡이 옆에 있는 <사랑술>은 ‘백보좌의 분재’와 같다.

54.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보좌 상징, 야심작> 앞에도 ‘네 생물’이 있다. 곧 ‘호랑이바위, 성자바위 안 치타 형상 바위, 낙타바위, 코끼리바위’다.

55. <야심작 중간>에 돌을 ‘뽀족하게 세워서’ 쌓았다면, ‘하나님의 백보좌 형상’이 될 수 없었다. <야심작 중간>은 ‘의자 바닥 부분’인데, 그곳에 돌을 ‘뽀족하게 세워서’ 쌓았다면 <의자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56. 만일 ‘야심작 중간에 세운 납작한 돌 몇 개’를 빼내고 다시 세워서 쌓았다면, <의자의 앉는 자리>를 ‘바늘 보좌’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애태우셨겠느냐. 아직 때가 안 되어 <야심작>이 ‘백보좌 상징’임을 밝힐 수 없으니, 무조건 “됐다. 거기는 돌을 세워서 쌓지 않아도 된다. 좋다.” 라고만 감동을 주신 것이다.

57. 다섯 번째 쌓을 때까지는 <하나님 백보좌 형상>이 아니니, 하나님은 야심작 돌들이 ‘다섯 번’이나 확 무너지게 하셨고, 야심작 중간에 세운 ‘큰 소나무’가 죽게 하셨고, 야심작 중간 쪽에도 돌을 ‘세워서’ 쌓지 못하도록 여건을 틀어 주신 것이다.

58. <6수>는 ‘끝나는 수’다. 다섯 번이나 돌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하니 ‘여섯 번째’에 <하나님의 구상>대로 완성했고, 모든 의문도 풀고, 답도 받고, 사연도 알고, 시대 비밀도 풀게 되었다.

59. 다섯 번째까지는 <야심작>이 ‘의자’와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고, 돌을 뽀족하게 세워서 쌓기만 해서 삼위일체 신이라도 앉을 수가 없었다.

60. 여섯 번째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야심작>을 보고, 좋아서 웃고 박수 치며 “이제 됐다! 됐다!” 하셨다. 비로소 ‘의자 형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61. 끝까지 하니, 의문이 풀렸다.

62. 끝까지 행하여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의문이 풀리는 것이다. 고로 끝까지 해라.

63. 끝까지 행해야 ‘개인의 의문, 시대의 의문’이 다 풀어진단다.

64. <하는 도중>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라 말씀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하여 다 완성하면, 그때는 ‘눈’에 보이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의문을 풀고 인정한다. ‘행한 자’도 의문을 풀고 답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신다.

65. <야심작>도 처음부터 ‘백보좌 상징’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으면, 일부러 ‘의자 형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형상이 의미가 없고, ‘삼위일체’가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이 됐을 것이다.

66. <야심작 구상>은 ‘만든 나’도 100분의 1도 몰랐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아시고 행하셨다. 내가 마음을

비우고 행하니, 그 구상을 ‘나’을 통해 실행하셨다.

67. <인생>도 ‘자기중심’을 비우고 살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삶을 살게 된다.

68. <야심작>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구상’이고, ‘하나님의 실천’이다.

69. <섭리사의 모든 것들>도, <휴거>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 구상, 실천’이다. 고로 끝까지 하면 의문도 풀리고, 그동안 수고한 것의 대가도 모두 받는다.

70. 사람이 미리 알고 행하면 ‘인성’으로 하게 되고 ‘인간의 본능’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순리적’이지도 않고 ‘질서’도 없다.

71. 어떤 것은 미리 알리면,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사탄과 악한 자들이 알고 시기 질투하여 방해한다.

72. 사람을 키울 때도 미리 ‘크게 될 것’을 알리면, 아직 연단받지도 않고 크지도 않았는데 사탄과 악한 자들이 미리 막고 방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끝까지 행하게 하신다. 끝까지 행하면, 눈으로 보이니 확실하다. 고로 ‘행한 자’가 스스로 깨닫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고로 끝까지 해라.

<2015년 12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73.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행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데 아직 행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해 주면, 사탄과 악한 자들이 미리 알고 시기 질투하여 못 하게 방해한다. 고로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여건을 틀어 주시며 인간이 ‘행하게’ 하신다.

74. <복직된 하와의 사명>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다.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사탄과 악한 자들이 미리 알면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인성으로 억지로 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수하게 오직 주 뜻대로, 주 가르침대로 크게 했다. 본인이 <삼위일체가 계획하신 것들>을 끝까지 다 행하고 나서야 ‘복직된 하와’라고 밝혔다. 고로 사탄도 사람들도 힐문하지 못한다.

75. 해 낚야 하나님도 ‘답’을 주시고, 끝까지 행했기에 ‘눈’에 보이니 시인하게 되고, 행했으니 주가 말해도 ‘자신’도 ‘청중’도 인정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한다.

76. <큰일>은 미리 알면, 의식되고 신경이 쓰여서 부담되어 더 못 한다. 그래서 <큰일>은 항상 은밀히 한다. 행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삼위일체는 더욱 감동을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틀어 도와신다.

77. <시대 구원자>는 최고로 숨겨서 은밀히 키우고, 수만 가지를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 연단받은 후에 나타나게 하신다. 연단받고 나타나야 ‘자신’도 다스리고, ‘청중’도 다스리고, ‘사탄’도 이기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고로 <시대 구원자>는 인류가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우고 극도의 연단을 받고 나타나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대상의 몸’이 되어 삼위의 시종을 든다.

78. 끝까지 연단받고 행하니,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79. <신구약 6000년 동안 세우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조건>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목적>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해 본 자’만 안다. ‘조건을 세워 본 자’만 안다.

80. <집 한 채>도 일일이 벽돌을 쌓으며 만들어야 완성되는데, <과거 6000년 동안 못 한 것>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마지막 역사가 시작되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고, ‘시대 대표’도 ‘시대 하와’도 수만 번씩 참고 견디고 행하면서 힘든 조건을 세웠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해서 된 것이다.

81. <제2의 복직된 하와들>도 각종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 섭리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결국 ‘끝까지 한 자들’만 휴거되어 하늘 뜻을 이루며 가고 있다.
82. 이 시대의 <휴거> 외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시는 사랑’은 더 이상 없다. 최고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마지막 사랑은 ‘휴거’다. <휴거된 자>라면 ‘평생 절대 잊지 않고 살아야 할 말씀’을 비유를 들어 말해 주겠다.
83. 한 나라에 어떤 왕이 있었다. 그 왕은 ‘한 여자’가 잘되게 늘 도와줬다. 그러다가 공부하도록 돈을 대 줬다. 거기서 ‘더 이상의 것’은 없을 줄 알았는데, 땅도 사 주고 집도 사 주면서 더 크게 해 주었다. 여자는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왕에게 최고의 은혜를 받고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했다. 그런데 왕은 “내가 ‘더 해 줄 것’이 있다.” 했다. <그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다니, 정말 엄청났다.
84. 그 후에 왕은 그 여자를 ‘왕의 궁’에 데려다가 왕을 돕게 했다. 전보다 더 차원을 높여 이상적으로 대해 준 것이다. ‘이보다 더 이상적인 것’이 있을까?
85. 왕은 여자가 23세가 되었을 때 ‘왕비’로 삼았다. 그야말로 ‘최고의 차원’으로 대해 주었다.
86. 왕이 여자에게 묻기를 “여기서 ‘더 이상의 것’이 또 있느냐?” 했다. 여자는 말하기를 “더 이상은 없습니다. 여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 더는 없습니다.” 했다. 그러나 여자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인’이었다. 왕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적인 것이 하나 더 남았으니, 이제는 제가 목숨 다해 왕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역시 내가 택한 여인이구나.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사랑받아 마땅한 여인이구나.” 했다. 여자는 <말>만 하지 않고 <행실>로 보여 줬다. 정말로 왕을 위해 매일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춤추며, 매일 왕과 대화하고 왕을 사랑하며 기쁘게 살았다. ‘사랑의 삶’이었다.
87. <왕>은 왕으로서 더 이상 해 줄 수 없이 다 해 줬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적인 것’은 없다. 하나 남았다면, <택함 받은 자>가 ‘왕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매일 감사 감격하고, 매일 대화하고 사랑하며 기쁘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88. 이 시대에 ‘신부로 휴거된 자들’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이 다 해 주셨다. 휴거시켜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게 하셨다. <더 이상의 것>이 있다면, 이제 ‘휴거된 자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 그 사랑의 힘으로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다. 누가 지혜롭고 현명하여 사랑받을 만한 신부나.
89. 지금은 ‘끝’이 아니다. ‘끝까지 가는 길의 중간 단계’다. 휴거 후 3년 반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다. 모두 끝까지 행하며 가야 된다. 그래야 ‘눈’에 보이니 확실해진다.
90. 끝까지 해야 ‘의문’도 다 풀리고, 자기 행위만큼 ‘황금성 휴거 집’을 더 크고 좋게 건설하고, 자기 행위만큼 ‘휴거 700’선을 크게 이루게 된다.
91. 끝까지 가야 <하나님의 행함>도, <섭리인들의 행함>도 알게 된다. 그때는 ‘눈’에 확실히 보이니, 부인하지 못한다.
92. <휴거에 있어서 최고 핵심>은 ‘사랑’이다. 성삼위와 주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어서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라.
93. <생명을 전도한 자들>은 ‘휴거 선’이 높다. 그리고 휴거를 ‘작게’ 이루지 않고 ‘크게’ 이룬다. 고로 <황금성의 자기 집>을 넓은 지역에도 멋있게 건설한다. 또한 땅에서도 <그 육>이 ‘공적자 위의 단계’에 있게 된다. 모두 하면 된다!
94. 모두 <휴거 700선>을 놓고 ‘크게’ 이뤄야 ‘인생 100년’이 아깝지 않고, ‘섭리 인생’이 아깝지 않다.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이면 ‘지금’ 하여라.
2. <현재에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미래에 할 일>이면 ‘미래’에 가서 해라.
3. <현재 못 한 것>은 이미 지나갔기에, 미래에 가면 못 하는 것들이 많다.
4. <미래>에 가서는 ‘미래에 그때 할 일’을 해야 되니, <지금 할 일>은 ‘지금’ 해야 된다.
5. <과거에 못 한 일>을 ‘지금’ 하려면, <지금 할 일> 때문에 못 하게 된다.
6. <꽃이 필 때> 그때 ‘꽃’을 못 보면, 나중에는 ‘양상한 나뭇가지’만 보게 된다.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7.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거두기다.
8. <제때> 해야 ‘제맛’이 난다.
9. <현재 할 일>을 ‘지금’ 하면, ‘미래’에 가서 제때 거두게 된다.
10. 역사를 보아라.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낳는다.
11. 선생과 섭리인들이 현재 ‘육’으로는 못 만나지만, <현재 할 일>은 ‘현재’에 다 해야 되니, 다른 방법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편지와 말씀, 소통과 의논 등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더 많이 뛰고 달리며 <지금 할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
12. <현재 못 하는 자>는 후에 만나도,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못 한다.
13. <현재에 할 일>은 ‘지금’ 다 하니, 후에는 반복하지도 않는다. 고로 지금 나와 같이, 성령과 같이 행하자.
14. <지금>은 ‘씨를 뿌리고 가꾸는 때’이고, <육신이 만나는 그때>는 ‘거두어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때’다.
15. <지금> 나와 같이 씨를 뿌리면서 행하지 않으면, <육신이 만나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 못한다.
16. 계절을 보아라. ‘때’가 되면, 사람 한 명 없어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간다.
17. 비행기나 열차나 버스를 보아라. ‘때’가 되면, 사람이 많지 않아도 기다리던 자들을 싣고 떠난다.
18. 하나님의 섭리역사도 ‘때’가 되면, 누가 아직 안 왔어도 떠난다.
19. 어떤 미련한 여자는 버스가 떠나는 시간인데, 거액이 든 핸드백을 버스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에 버스가 떠났다. 버스도 놓치고, 거액이 들어 있는 핸드백까지 잃어버렸다.
20. 3.16을 기점으로 <전 3년 반>은 ‘휴거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고, <후 3년 반>은 ‘700선으로 차원을 높이는 때’로서 최고 절정기’다. ‘이때’ 해야 된다! 때를 놓치지 말아라.

<2015년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제때 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고생돼도 혼자서라도 해라.

22. <혼자라도 제때 하는 자>는 ‘최고로 지혜로운 자’다.

23. 때가 지나면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때 과거’에 했어야 했다. ‘그때’ 못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지금은 나 여호와가 해 줘도 ‘때’가 지나서 안 된다. ‘때’가 그리 중하고 중하다.” 하신다.

24. 태양이 뜨겁게 떠올라 있을 때 추수한 곡식을 말려야지, 형제들이 오면 같이 하겠다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나서 추수한 곡식을 말리니 밤이슬이 내린다. - 그래서 ‘때’ 지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셔도 안 된다는 것이다.

25. 혼자라서 힘들면 ‘자기가 할 만큼’이라도 해라!

26. 해 보아라. 그러면 태양도 말하기를 “어서 ‘해’가 지기 전에 해라. ‘때’가 지나기 전에 해라.” 한다.

27.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건 값이 올라가 상황이 바뀌듯이, 때 지나고 하면 만사의 모든 상황들이 바뀐다.

28. <좋은 성전>도 ‘때’가 되어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도 간절히 기도하여 주셨다. 머뭇거리면 뺏긴다.

29. 때 지나면, 다른 자가 사 간다. 고로 ‘기회’가 끝난다.

30. <구원할 생명>도 ‘때’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서 10배, 100배 전도하기 어려워진다. 100배나 힘든데, 누가 전도하겠느냐.

31. <때를 지키는 자>는 때마다 많이 얻는다. <때를 지키지 않는 자>는 때마다 잃는다.

32. 어떤 생명은 <그 날>만 ‘생명권’에 있고 <내일>은 ‘사망권’으로 가는데, 전도자가 영감과 직감이 흐리멍덩하여 <그 날> 그 생명을 만나서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내일> 만나자고 했다. 다음날 만나려고 전화해 보니 어떤 사람은 다른 데로 가 버렸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이미 죽었다. 전도자에게는 <그 날>이 ‘그 생명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었고, 그 생명에게는 <그 날>이 ‘마지막 전도자를 만나는 날’이었던 것이다. 그때 만났을 때 빨리 희망을 주면서 “주가 왔다. 가자! 나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아났다.” 했으면 살렸건만, ‘인성’으로 전도한 것이다. 빨리 제때 행하지 못하여 생명을 뺏긴 것이다. 이런 사람은 ‘치타 과’가 아니라 ‘거북이 과’다. 왜 거북이가 다른 동물보다 오래 사는지 아느냐. 느리게 살아서다. 거북이는 1000년을 살아도 1000리밖에 못 간다. 다른 동물은 100년 살아도 1000리를 간다. 치타는 20년을 살아도 1000리를 가는 격이다.

33. 아무나 ‘치타 족속’이 되겠느냐. 빨라야 ‘치타’다. 그러나 주 뜻대로 행하며 빨라야 ‘진짜 치타 족속’이다.

34. <영감>이 있고, <직감>이 있고, <생각>이 빨라야 ‘죽을 자’도 느끼고 살린다.

35. 선생이 기어 다니는 아기 때였다. 어머니는 가는골에서 밭을 맷고, 50미터 떨어진 곳의 나무에다 끈을 매달아 아기의 허리에 묶어 놓고 기어 다니며 놀게 했다. 어머니가 밭을 매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호미를 그대로 들고 아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독사가 아기를 물려 하고 있었고, 아기는 독사를 때리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호미로 독사의 목을 치고, 돌을 들어 독사의 몸을 몽개어 죽여 버렸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왔다. 조금만 늦게 갔다면, 아기는 독사에 물려 죽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너도 엄마가 올 때까지 싸웠구나. 잘했다.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고생돼도 내 옆에 있는 작은 고욤나무 그늘 아래 있어라.” 하며, 그때부터는 혼자 놀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기를 끈으로 매달았던 감나무 가지도 베어 버렸다. 어머니가 나를 나무에 매달아 놔서 도망도 못 가고, 앞에 이상한 물체가 있으니 맨 주먹으로 주먹질을 하면서 한 손을 내저은 것이다. 그러니 독사도 순간 공격을 못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에 성자와 성령이 감동시켜 어머니를 가 보게 한 것이다. <영>은 ‘육’을 통해 행한다.

36. 아기니까 뱀인지, 독사인지 모른다. 아기라도 ‘성자’께서 함께하여 독사가 순간 공격하지 못하게 손을 내젓게 한 것이다.

37. 누구든지 혼자라도 죽음을 놓고 싸워야 된다. <기어 다니는 아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며 ‘독사’와 싸우는데, 왜 그 나이 먹고도 ‘자기 앞에 있는 것’과 싸우지 못하느냐.

38. <죄>는 ‘점진적’으로 짓게 된다. 고로 <작은 것>이라도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지 말아라. 그것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더 죄를 크게 짓게 된다.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

39. 30세가 넘은 어떤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나이트클럽에 다니면서 ‘이런 것은 괜찮겠지. 남자만 안 만나고 이성 죄만 안 지으면 되지.’ 했다. 그러다가 그다음에는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같이 술까지 마시게 됐다. 그러나 ‘이성 죄만 안 지으면 되지.’ 하면서, 계속 같이 있다가 호텔까지 가게 됐다. 남자가 몸을 요구하니 안 된다고 했다. 남자가 “이것쯤은 보통이지.” 하니, 그 지도자는 순간 괜찮다고 생각하여 타락했다. <죄>는 한 번에 짓지 않는다. 사탄은 ‘그 몸’을 쓰고, 점진적으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도록 생각을 돌린다.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남 구원> 말고, 평신도가 되어 <너 자신>을 구해라.” 하셨다. 성자와 구원자의 조건으로 <300선 휴거>를 시켜 뉘어도, ‘이제 휴거됐으니 괜찮겠지.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하며 자기중심으로 막 행하고, <휴거>를 가치 없게 생각하면 뺏긴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 1억만 명’보다도 <휴거>가 더 좋다는 것을 모르니 그러하다.

40. <300선 휴거>가 상실되면, 다시 4~7년 동안 ‘휴거’가 절대적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고 조건을 세워야, 겨우 <300선 휴거>에 다시 오른다. 다른 자들은 그 기간에 <700선>까지 이루어 주와 같이 먹고 마시는데, 그때 <300선>에 겨우 다시 올라오려느냐.

41.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성으로도 <휴거>를 상실하지 말아라. 후에는 그 가치만큼 후회하면서 괴로움 속에 허덕인다.

42. <휴거의 가치>를 상실하지 말고, ‘휴거 후 3년 반’ 이 기간에 제때 행하여 주와 같이 먹고 마시고 누려라.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43. 제때 빨리하지 않으면 <당세>에는 얻지 못하고, <후>에 가서 ‘행한 것’만 얻는다.

44. <당세>에 못 하니 <후대>들이 행하여 얻고 누린다. 그러면 자기는 손해다. <당세>에 땅에서 치타같이 뛰고 달랠라.

45. 치타는 ‘빠른 것’이 상징이다. 고로 ‘빠른 영양’을 잡아먹는다. 이와 같이 <빨리 제때 행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

46. 하나님은 ‘준비된 빠른 구름’을 타고 행하신다.

47. <빠른 구름>이란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행하는 자다.

48. <새 시대 보낸 자>는 독수리같이 빠르다. 독수리는 시속 190km로 난다. 이렇게 빠르게 행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고 역사를 썼는데도, 기성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

49. 삼위일체는 독수리같이, 치타같이 생각을 빨리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두고 올라가며 행하는 자들을 타고 행하신다.

50. <같은 길>을 두고도 가는 방법이 다르다. ‘걸어가는 방법 : 빨리 걷는 방법 : 뛰어가는 방법’이다. 시대 섭리 인생들도 그러하다. <같은 역사>를 두고, 저마다 가는 방법을 달리한다. ‘걸어가는 자 : 빨리 걷는 자 : 뛰어가는 자’ 제각

각이다. 늦게 가는 자는 예정된 것도 늦게 얻어 늦게 누리고, 고생도 늦게 벗어난다. 빨리 가는 자는 빨리 얻고 누리고, 고생도 빨리 벗어난다.

51. 늦게 가서 얻고 누리려 하면, 인생 해가 저서 못 누린다.

52. <빨리 정신 차리고 행하는 자>는 10배, 20배 ‘빨리’ 간다. <뛰는 자>는 ‘순간’에 간다. <걸는 자>는 ‘한참’을 간다.

53. <생각이 빠른 자>는 10년 전에 행하여 끝났다. <생각이 느린 자>는 1년 후, 2년 후에 그제야 알고 행한다. 어떤 것은 10년 후, 20년 후에 알고 행한다. 그러니 답답하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앞장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느냐.

54. 어떤 사람은 선생이 2분 이야기해 줬는데 선생의 사명을 깨닫고, 지금 섭리사에서 최고로 앞장서서 날면서 된다. 어떤 사람은 3개월, 혹은 1년, 혹은 5년, 혹은 10년 그렇게 말씀해 줘도 제대로 모른다. 알면, 날면서 된다!

55. <뇌 생각의 차이>는 ‘차 엔진 기능의 차이’와 같아서 매우 중요하다. 기도하여 제대로 깨닫게 하여라.

56. 느리면 <휴거 700선에 도달하는 것>에 늦어진다. 늦으면 만사의 모든 것들이 다 손해다.

57.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행한 것은 못 속인다. 이는 불변의 법칙이다.

58. 누가 “나는 선생과 친하다. 나는 큰 자다. 너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런 말은 자기 주관에 속한 말이다. 그 말을 들으면 속는 것이다.

59. <진실한 행동>은 못 속인다. 고로 ‘말’만 하지 말고 ‘진실함’을 보여라. ‘진실한 행동’을 보여라.

60. 영계에서 “나는 선생과 친하다. 큰 자다. 사랑을 많이 받는 자다.” 하는 자들의 ‘혼’을 보여 달라고 해서 보아라. 못 속인다.

61. <혼>은 ‘입고 있는 옷’으로 행위가 드러나고, ‘그 혼이 속한 환경’으로 그 행위가 드러난다.

62. <육의 행위>를 분별하려면, 꿈에서 ‘그 혼과 영’을 보아라. 그러면 다 분별한다.

63. <영>은 자기 계급을 ‘옷과 빛과 미’로 찬란하고 아름답게 나타내고 다닌다.

64. 돌쇠는 충성스럽게 발을 깊이 갈았기에 ‘발에 깊이 묻힌 보화’를 발견했다. 섭리사에서 충성스럽게 행한 자는 결국 ‘빛나게, 크게’ 받고 있다.

65. <목적지를 두고 가는 인생길>에도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완만한 길로 멀리 돌아서 가는 방법’ – 계단으로 보다 빨리 가는 방법 – 경사가 심한 길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 - 자기 선택이다.

66. <완만한 길>은 편하지만 그만큼 목적지가 멀리 있어 늦게 가게 되고, 편한 만큼 방심하게 된다.

67. <계단 길>도 그만큼 편하다. 편한 만큼 목적지까지 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68. <급경사 길>은 험하지만, 그만큼 목적지가 코앞에 있어서 ‘짧은 시간’에 ‘모험’을 하면서 가게 된다. 길이 험하니 그만큼 조심하게 된다.

69. <급경사 길>은 고생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 길을 선택하여 가는 자는 그만큼 결심하고 정신 차리고 행하는 자다.

70. 각자 ‘얼마만큼 속도를 내고 안전하게 가느냐’가 문제다. 이것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71. <구약>은 ‘완만한 길’로 느슨하게 가니, 4000년이 걸렸다. <신약>은 ‘계단 길’로 차근차근 가니, 2000년이 걸렸다. <성약>은 ‘급경사 길’로 빨리 가니, 1000년이 걸린다.

72. <구약>은 ‘종의 입장’에서 느슨하게 하니, 4000년이 걸렸다. <신약>은 ‘자녀 입장’에서 차근차근 하니, 2000년이 걸렸다. <성약>은 ‘신부 입장’에서 빠르게 하니, 1000년이 걸린다.

73. <구약>은 ‘마차 길 역사’이고, <신약>은 ‘자동차 길 역사’이며, <성약>은 ‘비행기로 가는 역사’다.

74. <성약역사>는 최고로 발달된 역사로서 ‘삼위일체의 사랑의 뜻’을 이룬다. 마지막 <성약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고, ‘지구 역사’를 마치게 된다.

75. <섭리사에 일찍 오고도 느리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가을에 추수되지 못하고 들판에서 겨울을 맞는 곡식 되듯 한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행해라.

76. <섭리사에 늦게 왔지만 정신 차리고 급하게 빨리 행한 자들>은 벌써 휴거 300선에 올라서 다음 차원으로 달리고 있다.

77. <목숨 걸고 하는 자>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주선’을 타고 날듯, 그러한 육과 혼과 영이 되어 달리고 난다.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으로 ‘계시’도 오고,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온다.

2. <생각>이 산 자는 <몸>도 살아서 행한다.

3. <생각>이 죽은 자는 <몸>도 죽어 있다.

4. <생각>이 이탈되면 <몸>도 이탈된다.

5. 생각의 축복이다!

6. <생각>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의 삶’이다.

7. <몸>은 ‘생각’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8. <생각>이 부패되면 <몸>도 부패된 것이다.

9. <생각>이 휴거돼야 <육>도 <혼>도 <영>도 휴거된다.

10. <생각>이 멀면 <육>도 멀고, <생각>이 가까우면 <육>도 가깝다.

11. <생각>이 꺾이면 <생활>이 꺾인다.

12. <생각>이 막히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13. <생각>에 따라서 ‘희망’이다.

14. <생각>을 ‘삼위’와 일체 시키고 ‘주’와 일체 시키기다.
15. <생각 발달>이 <몸 발달>이다.
16. <생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
17. 생각의 품종, 생각의 질이 좋아야 된다.
18. <생각>에 ‘지혜·지식·총명’이 있다.
19. 저마다 ‘생각의 샘’이 솟아야 된다.
20. <좋은 생각>이 ‘충만’해야 된다.
21. <생각의 가뭄>이 들면, ‘인생 농사’를 못 짓는다.
22.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통한다.
23. 생각 신령이다.
24. 생각 집중이다.
25. <생각>을 잊으면, ‘생각’을 도둑맞아 뺏긴다.
26. <생각>에 따라서 결정된다.
27. (삼위일체) <생각의 그릇>에다 ‘나 삼위일체의 생각’을 담아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28. (삼위일체) <네 생각>으로 하면 지루하다. 힘들다. 어렵다. 못 한다.
29. (삼위일체) <전능자의 생각>은 ‘빛’과 같다. 고로 전능자는 빛과 같이 행한다.
30. (삼위일체) <네 생각>은 짧아서 ‘목적’에 미치지 못한다.
31. (삼위일체) <네 생각>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없고 ‘응답’도 없다.
32. (삼위일체) <네 생각의 구상>은 역시 ‘인간 차원’이다.
33. (삼위일체) <나 전능자의 생각>대로만 해라.
34. (삼위일체) 많은 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세상>에서는 크게 했는데도 <영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작게 끝났다.
35. (삼위일체) 처음부터 나중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삼위일체의 생각’으로 하기다.
36. (삼위일체) <자기 생각>인지 <삼위일체의 생각>인지 모르느냐.
37. (삼위일체) 사람은 ‘그때’만 생각하고 행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니, ‘그것’은 뻔어도 ‘다른 것’이 막히게 된다.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또 막히게 된다.

38. (삼위일체) <사람의 생각>은 ‘배운 것 중의 지적인 생각’이고, <삼위일체의 생각>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다.

<2015년 12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39. <생각>이 ‘원하는 길’을 못 가면, <육>도 못 간다.

40. <생각>에서 잊으면, <몸>도 잊어버리고 끝나게 된다.

41. 영의 세계는 ‘몸’으로는 교통이 안 된다. ‘생각’으로 교통한다.

42. <생각>은 ‘영의 세계’도 지배하고 ‘육의 세계’도 지배한다.

43. <생각>이 죽으면, <육신>이 살아 있어도 식물인간이다.

44.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는 ‘그 면에서 죽은 자’다.

45. <산 자>를 시켜서 해야 된다.

46. <모르는 자>는 ‘그 면에서 죽은 자’다. 살아날 때까지는 그 일을 못 한다.

47. <산 자들이 하는 일>인데, ‘죽은 자’가 알겠느냐.

48. <생각이 죽은 자>는 ‘살아 있는 시체’다. 산 시체들이 걸어 다니며 인생을 살아간다.

49. <아는 자>는 ‘산 자’요, ‘신’이다.

50. <사망에 처한 자>는 육도 영도 모두 죽은 것과 같다.

51. <산 자>만 ‘삼위’와 통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간다.

52. <모르는 자>는 ‘죽은 자’다.

53. 섭리사에 ‘죽은 자들’이 많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다.

54. 알면, 행하여 살아난다. 기도해라. 깨닫고 알아라. 그리고 행해라.

55. <행실이 죽은 자>는 얻지 못하고, 얻어도 ‘안개’나 ‘구름’을 얻고 ‘바람’을 얻는다. 고로 허무하다.

56. 주와 하나 돼라. 그로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진다.

57. <생각>이 ‘밤’을 맞으면, 해가 뜰 때까지는 어둡다. ‘의로운 해’가 떠오르도록 ‘해’를 맞아라. 생각해라!

58. <생각이 잘못된 자>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행여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별로다.

59. <생각>에서 ‘주 사랑의 불’이 붙어야 된다.

60. <생각>이 잘못되고 불의하면, 행해도 잘못된다.

61. 행하되 '의로운 생각, 좋은 생각, 삼위의 생각'으로 행해라.
62.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63. <입>과 <생각>이 따로 놀면 안 된다.
64. <뇌>는 작동하고 <생각>은 운전해야 된다.
65. 생각의 접붙임이다.
66. <생각>을 '주'와 접붙여라. 그래야 심정도, 행실도, 사랑도, 혼도, 영도 접붙이게 된다.
67. <생각>이 무섭다.
68.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낸다.
69. <의로운 생각>으로 일을 한다.
70. 생각하며 사는 삶의 세계다.
7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어둔 밤에 동산에 '보름달'이 떠오르듯 '초승달'이 떠오르듯, '생각'이 떠오르게 하신다.
72. <생각>과 <행실>을 다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생각>과 <몸>이 일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3. <몸>은 습관대로 행하고, <생각>은 그때마다 판단하면서 행한다.
74. <생각>이 팔팔하고 날렵해야 된다.
75. <생각>으로 하면 '일순간'이다. * 어제 오늘 전해 주는 '생각'에 대한 잠언도 <생각>으로 하니 '일순간' 75개나 썼다.
76. 잠언도 <자기 지식>으로 쓰면 많은 잠언을 쓰지만, '인간 지식의 잠언'일 뿐이다. <신의 생각>을 받아서 써야 '신의 잠언'이다.
77. <생각>을 잘못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삶'을 산다.
78. <생각>이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으니, 오랫동안 잘못된 길로 간 것이다.
79. <생각>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 왜? <생각>이 빛나가면 <몸>도 <행실>도 빛나가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은 가볍게 시작을 잘한다. 이와 같이 <몸>도 시작해라.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뇌와 생각'을 아주 기묘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뇌와 생각'에 대해 알고 살지 않으면, 너무 모르고 조금만 써먹고 나머지는 못 써서 고생을 많이 한다. 너무 억울하다.
3. <뇌와 생각>이 '자기 혼과 영'을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느냐, 못 가게 하느냐를 좌우시킨다.

4. <뇌>는 인생 일생을 쓰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뇌와 생각>을 통해 ‘자기 혼과 영’을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뇌와 생각>을 그쪽으로 쓰지 못하여 ‘자기 혼과 영’을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하지 못한다.
5. <뇌와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만 쓰는 자는 ‘좋은 나무’를 베다가 ‘하루 떨감’으로 쓰고 끝내는 자와 같다.
6. <뇌와 생각>을 ‘영원한 것’에 쓰는 자는 ‘좋은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로 ‘집’을 짓고 100년 동안 편하게 사는 자와 같다.
7. <뇌와 생각>을 ‘현실’만을 위해 쓰면 ‘육’만 위해 쓰다가 끝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와 일체 되어 ‘자기 영’을 위해서도 쓰고 ‘육’을 위해서도 쓰면,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제2의 육과 같은 혼’과 결합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8. 사람이 <영>을 위해 산다고 해서 <육>이 ‘영을 위해 사는 것’에 시간을 다 뺏기는 것도 아니고, <육>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영>을 위해 살면 <육>이 더 잘되고 형통한다.
9. “영과 혼이 어디 있어?” 하는 것은 “지구가 어디 있어?” 하는 격이다.
10. 해가 뜨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그와 같이 지구가 빨리 돌면서 가고 있다.
11. 가을에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아라.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인생도 질 때는 그렇게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진다.
12.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한 달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확 다르다.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진다.
13. 너의 ‘뇌와 생각’을 놀리지 말고, ‘몸’도 놀리지 말고 써라. <육>을 위해서도 쓰되, 꼭 <영>을 위해 써라.
14. <가지고 있는 것을 못 쓰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15. <자기 생각, 자기 몸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못 쓰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16. <사랑>도 ‘자기 혼자’만 하면 ‘자기’만 끊으면 끝난다. 하지만 ‘상대’와 같이 사랑하면 ‘자기’만 끊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대’도 끊어야 끝나게 된다.
17. <자위>는 스스로 끊으면 끝나지만, <상대성 사랑>은 ‘상대’도 끊어야 끊어진다.
18.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은 ‘자기’만 절대로 행하면 다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와 얹히면 ‘자기’만 잘해도 해결되지 않는다.
19. 고로 <자기 마음 문>을 ‘상대’에게 마구 열어 주지 말아라.
20. 첫째 ‘자기와의 싸움’이고, 둘째 ‘상대와의 싸움’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상대’에게도 조건을 주지 않으니 ‘상대와의 싸움’도 안 하고 이기는 자다.
21. <사람의 몸>은 존재하기 위해 작동한다. 고로 ‘마음과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움직여져서 그 자극과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22. <할 일>만 하고 <갈 길>만 가라. 그 이상은 ‘마음과 생각, 행동 금지’다. 거기서 더 하고 더 가면, 그쪽으로 흘러 가게 된다.

23. <마음과 생각>은 살아 있는 한 ‘정지’가 안 된다. 계속 운행된다. 고로 <마음과 생각>을 항상 다스리고 잡아야 된다. ‘생각’으로 잡고 ‘생각의 열쇠’로 잠가 놔야 된다.

24. <생각>도 <몸>도 ‘갈 길’을 벗어나서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말아라. 곁길로 가면,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온다.

25. <생각>도 <몸>도 한계선을 넘어가면, 못 다스리게 된다. 마치 톱니바퀴가 넘어가듯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26. <자기 마음 다스리기>는 <남의 마음 다스리기>보다 쉽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승리하여 ‘천국’으로 가고, 못 다스리면 ‘사망’으로 간다.

27. 매시간 마음, 생각 다스리기다.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내 뜻을 이뤄야 준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가 원하시는 뜻’을 먼저 이뤄 줘야 주신다.

3. 믿음, 사랑, 회개, 실천, 전도, 관리, 성경 바로 풀고 행하기, 말씀 제대로 듣고 깨닫고 행하기 등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동시에 사용하신다.

5. 인간은 집이나 공원이거나 물건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동시에 사용을 못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국’과 ‘지상의 모든 것들’을 동시에 사용하시고, ‘사람’도 동시에 각각 다 만나고 대화하신다.

6. 자기가 만든 집이나 환경에서 살 때 기뻐하며 좋아한다. 자기 수고, 자기 정성, 자기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7. 하나님도 성령과 성자와 함께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삼위가 창조했기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좋아하셨다.

8.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꺾지 않으신다.

9.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시기에 의지를 꺾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신다.

10.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하겠다고 한 곳을 심판하신다. 이미 심판으로 결정하셨기에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진행하신다. 다만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도 그 의지를 돌리신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대로 그대로 진행하신다.

11. $2+2=4$ 다. 답은 ‘4’가 맞으니, 하나님은 ‘4’로 진행하신다. 만일 누가 ‘ $2+2$ ’에다가 자기 것 ‘1’을 넣어 주며 하나님의 의지를 돌려 달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니, 하나님은 의지를 돌리시고 ‘ $2+2+1=5$ ’로 진행하신다.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조건>을 주면서 해 달라고 해야 된다. 고로 ‘하나님이 주셨다.’ 함은 ‘인간이 수고와 조건으로 더 해 준 격’이다. 고로 ‘4’를 벗어나 ‘5’가 된 것이다. 무조건은 없다.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 줘야 된다.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정녕코 기어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살게 하신다.

2. 인간은 ‘자기’가 좋아해도 ‘상대’가 싫어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특권이 있어서, 그 특권을 가지고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정녕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 뜻대로 살게 하신다.

3. 창조주는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를 택하여 정녕코 ‘사랑의 뜻’을 이루신다.
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두고 그 뜻을 이룰 방법’이 아주 많다. 고로 불가능 없이, 원하시면 다 이루신다.
5. <구원>은 ‘자기가 믿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기 책임이다. 이것과 달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꼭 택하시고 각종 방법으로 행하여 마치 독수리가 사냥하듯 꼭 뜻을 이루고 마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이 진실로 원하는 사람’은 꼭 택하여 정녕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을 이루신다. 천군과 세상 사람들도 총동원하시고, 각종 것들을 총동원하여 행하신다.
7. 하나님이 행하시되, 그 사람이 못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뜻을 이루신다. 고로 ‘그 상대가 되는 인간’도 그것을 알고 기뻐하며 행하여 뜻을 이룬다.
8. <모양과 형상>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얼마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에 들게 갖췄느냐’가 문제다. 이것이 ‘핵’이다.
9.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다 하자. 여자가 ‘그 조건’에 맞게 갖췄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삼위가 원하시는 것’이 갖춰져 있어야, 삼위가 좋아하고 사랑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 ‘사랑’을 이루려 하신다.
10. <작품을 사러 다니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갖춰져 있어야 합당하여 만족하고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것을 사려 한다.
11. <갖춰져 있는 것>은 ‘작품’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보화’다.
12. <대상>은 ‘주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좋아하는 것’이 된다.
13. 갖춰져 있지 않은데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 어떤 <산>이 있는데 그 산에는 돌도, 나무도, 물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아서 그 산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 왜 그 산을 샀냐고 하니, “나는 돌, 나무, 물 다 안 따진다. 그냥 <산>이면 좋다. 그동안 평지에만 살아서 ‘불룩한 곳’이면 다 좋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서 샀으니 만족하다.” 하며 기뻐 잔치했다.
14. <산>만 보고 좋아서 산 자도 살다 보면 ‘돌, 나무, 물이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쉬워하며, 나무도 심고 하나씩 갖춰 나가면서 살 것이다.
15. 갖춰져 있을수록 좋고 편하다.
16. 갖춰져 있을수록 ‘천국’이 된다. 고로 하나님은 ‘갖춘 세계인 천국’에서 만족하며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갖춘 자들의 영’만 천국으로 오게 하신다.
17. <갖추지 못한 자의 영>은 천국과 멀리 떨어진 곳, 덜 갖춰진 세계, 천국 변두리 세계로 간다.
18. 물건도 ‘흠’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들고 만족이 안 된다.
19. 사람도 ‘흠’이 없어야 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만족한다.
20. 자동차도 처음에 만족해도 쓰다 보면 점점 고장이 나면서 험 차가 된다. 인생도 그러하다. - 고로 고쳐야 된다. 만

들어야 된다.

21. 흠이 없으려면 - 첫째, 타고나야 되고 둘째, 고치고 만들어야 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 갖추고 존재하신다.

23. 인간은 신이 아니라서 모든 것을 다 갖추 수는 없다. 개성대로 부분적으로 갖춰진 상태에서 흠이 없도록 고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4.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모든 형상과 모양이 다 갖춰져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구 세상 전체>를 보면 다 갖춰져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기 힘들지만, <삼위일체>는 다 갖추어 존재하신다.

25.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자기 사명 쪽>만 갖추고 있으면 '결작 인생'이 된다.

26. 인생도 물건도 <핵>은 갖춰야 '작품'이 된다.

27. <그 존재물의 핵>이 되는 것은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

28. <핵>은 '중심'이다.

29. <핵>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자면, <볼펜의 핵>은 '잘 써지는 것'이다. <잘 써지는 것>이 '핵'이며 '생명'이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모양과 형상'이다.

30. 볼펜의 모양과 형상은 멋진데 잘 안 써진다면, 모양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다.

31. 사람도 '모양과 형상'만 멋지고 '쓸 때'는 별로라면, 모양만 기쁨이 된다.

32. 만물도 인생도 먼저 <핵>을 갖추고 그다음에 <모양과 형상>을 갖추면, '만물 작품, 인생 작품'이다.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한 번에 잘하려면 못 한다. 고로 배워야 된다. <여러 번 해 보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2. <배우는 것>이란, '여러 번 해 보는 것'이다.

3. <자기가 행하면서 배우는 것>은 고생되고 힘들어도 '실습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4. <상대에게 배우기만 하는 것>은 실습 없이 편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다.

5. 배웠어도 자기가 행해 보지 않으면 '감'이 없다. 자기가 행하면서 배우기다.

6.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어도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면 '이론'에 불과하다. 듣고 '행하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7. 무엇이 '표상'이냐.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만큼 '행하는 자'가 표상이다.

8. 나이가 먹으면 <힘>이 약해지듯이, <생각>도 약해진다.

9. <육의 세계>에서는 '생각한 것'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봐야 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한 것'이 뇌의 현상

으로 현실화되어 보인다.

10.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해 먹고 즐긴 것들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행한 일들이 ‘호박씨를 까서 입에 톡 털어 놓고 끝나는 격’이다. - 고로 맛있게 먹었으나 그것으로 끝난다. <미래의 영을 위해 사는 자>는 ‘호박씨를 땅에 심어서 키운 격’이다. 고로 호박씨가 자라 호박 넝쿨이 5m, 10m씩 뻗어 나가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 크는 것을 보고, 과정 중에 따서 각종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호박이 다 커서 큰 향아리같이 된 것도 본다. - 고로 영원한 세계를 얻고, 영원히 즐기고 누리게 된다.

11.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라는 곡식 농사를 지어서 그저 먹고 끝난다. 아직 ‘남은 인생’은 <씨>로 뿌리게 해야 된다. 어서 전도하자. 그들도 남은 인생 <씨>가 되어 ‘미래의 영’을 위해 살라고 하면서 전도하여라.

12. 하나님의 섭리역사로 인도해 오면, 저들도 남은 인생을 <볍씨>로서 ‘자기 영’을 위해 씨를 뿌리고 살게 된다. 이로써 ‘영원한 세계 황금별판’을 만들게 된다.

13. 이미 섭리인들은 일찍부터 ‘하늘의 생명이 볍씨’가 되어 살아왔다. <육>으로 심으면서 <영>으로 거두며 살아왔다. <자기 육의 삶>을 투자하여 <영>으로 거두었다. 고로 ‘휴거의 영’이 되었다.

14. 이제부터는 ‘휴거의 삶’을 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행하면서 ‘얼마나 차원을 높이느냐’다.

15. 휴거됐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 반대 편 극으로 ‘생각’이 돌아간다.

16. 휴거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의 핵심은 ‘생각’이다. 성령도 주도 ‘네 생각’이 반대 편 극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 생각’을 꼭 잡고 다니니, <네 생각>을 ‘하나님’께 걸어 놓고 살아가라.

<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의 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보고 느끼고 대하려면, ‘여러 방향’에서 봐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만물>도 ‘여러 방향’에서 보고 대하면, 아름답고 신비한 것들을 많이 보고 얻게 된다.

2. <대둔산>도 ‘하나의 산’이지만 정면, 측면, 뒷면 각 위치대로 각각 달리 보여서 ‘여러 개의 산’을 구경하듯 할 수 있다. <사람>도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을 가지고도 ‘수십 가지’를 보고 얻게 된다.

3. 1년 동안 똑같은 <하나의 산>을 올라가도 각각 다르게 보고 느끼려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올라라.

4. 성경 말씀도, 성자의 말씀도, 성령의 말씀도, 잠언 말씀도 <한 가지 말씀>인데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 각각 깨닫고 느끼고 얻게 된다.

5. <자연석>도 ‘방향’을 달리하여 보면, ‘여러 가지 형상’을 볼 수 있다.

6. <자기>를 다방면으로 개발하여 ‘여러 가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면이라도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방향>에 따라서 ‘보고 느끼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인식’대로 보고, 또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본다.

7. <어떤 것>을 두고 성령님께 ‘약속’을 받았다. “정말 해 줄 수 있어요?” 하니, 성령님은 확인도 안 하고 “해 줄게.”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성령님이 해 주겠다고 약속했어도 제가 저의 책임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저의 책임 분담도 계산하지 않고 해 주겠다고 금방 대답하셨어요?” 하고 물었다. 왜 그 순간 대답하셨겠느냐. - <이미 해 준 것>인데, ‘받고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8. <자연 계시>도 ‘본인’만 그 형상을 보고 이해하면, 계시해 주신다.

9. 가령 <산>이 ‘사람 형상’이라는 것을 ‘본인’만 알아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것’을 통해 ‘사람에 대한 계시’를 해 주신다.
10. <하늘의 구름>이 떠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계시를 못 해 준다. 그 구름을 보고 ‘어떤 형상인지 이해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형상’을 통해 계시를 해 주신다.
11. <만물>은 ‘비유’로 사용되니 ‘비유되는 형상’만 알고 이해하면, ‘그 만물’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
12. 가령 ‘소’로 비유를 들어 계시를 해 주려는데, 도시의 거리에서는 ‘소’를 찾을 수가 없다. - 이때는 ‘동물 형상 건물’이나 ‘동물 형상 길’이나 ‘동물 형상 구름’을 눈에 띄게 하여, 그 사람이 그 형상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계시해 주신다.
13. 개발하면, <지옥 환경>도 ‘천국 환경’이 된다.
14. 월명동도 개발하기 전에는 ‘지상 지옥, 지옥 환경’이었다. 개발하니 ‘천국 같은 환경’으로 뒤바뀌어 <환경 휴거>가 되었다.
15. 각 분야마다 ‘더 이상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극치의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는 <휴거>라고 표현한다.
16. <휴거>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이 없다. 고로 ‘최고의 것’을 <휴거>로 비유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이 합당하다.
17. 월명동은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함으로 ‘천국 환경’으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하나님의 대(大)자연성전’이 되었다.
18. <휴거 이상의 것>이 있다면 <휴거된 환경>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휴거된 영>을 가지고 ‘천국의 삶, 사랑의 삶, 휴거의 삶’을 살면서,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다.
19. 하나님께 영광 받으라고만 하지 말고,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영광 받으신다.
20. 개인 단위, 가정 단위, 민족 단위, 세계 단위로 영광 돌리기다.

<2016년 1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 좋게 ’ 변하면 정말 좋지만, ‘ 나쁘게 ’ 변하면 너무 나쁘다.
2. < 좋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이 ‘ 희망 ’이다. ‘ 기쁨 ’이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너를 늘 쳐다보신다. < 좋게 변화되는 것 >을 ‘ 희망과 기쁨 ’으로 삼으시고 쳐다보신다. 그러니 늘 말씀대로 행하여 좋게 변화되자!
4. 때가 됐는데도 변화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 희망 ’이 없고, 오히려 ‘ 실망 ’이 된다.
5. 시대는 점점 변해 가는데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 ‘ 변화되어 오는 것 ’을 얻을 수가 없다.
6.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 목적 ’을 이루시려고 < 시대의 차원 >을 높여 가신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 사람들 ’이 시대에 따라 차원 높여 생각하지 않고 차원 높여 변화되어 살지 않으면, ‘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 ’도 못 받고, ‘ 그로 인한 축복 ’도 못 받게 된다.
7. 영의 세계에 간다고 ‘ 자기 마음 ’이 달라지겠느냐.

8.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도 ‘그 마음, 그 얼굴’이듯, <이 세상>에 처한 ‘그 마음’은 <영의 세계>에 가도 ‘그 마음’이다.
9.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것 그대로, <영의 세계>에서도 자기 혼과 영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한다.
10. <이 세상>에서 ‘육의 생각과 행위’를 보면, <영의 세계>에서 그 혼과 영이 ‘어느 세계’에 처했는지 다 알 수 있다. 영의 세계의 혼과 영은 이 세상에서 육이 생각하고 행하는 그대로 생각하고 행한다.
11. <이 세상>에서 악한 자>는 <영계의 그 혼과 영>도 악하다.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영계의 그 혼과 영>도 우상을 섬기고 산다. <이 세상>에서 남자>라면 <영계의 그 혼과 영>도 남자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육의 마음과 행위>대로 <영계의 혼과 영>이 그대로 생각하고 행한다.
12. <이 세상>에서 모순을 고쳐야 <영의 세계>에서도 고쳐진 대로 보인다.
13.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함’을 보여 주신다.
14.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을 것>인데 기다리면서 수백 번, 수천 번씩 그것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며 매일 소망으로 산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 어떤 혜택이 있겠느냐. - 하나의 심리적인 소망으로 살 뿐이고, 아무 유익도 없이 물거품으로 끝난다.
15. 엄마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가 모르고 하루 종일 엄마가 무엇을 해 주기를 기다렸다고 하자. 기다리다가 하루 해가 저무니, 소망하며 기다린 보람도 유익도 없을 것이다. <구시대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는 소망>은 곧 ‘재림’이다. ‘부활’이며 ‘휴거’다. 하나님은 <재림과 휴거 역사>를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실 것인데, 기다리는 자들이 ‘그렇게 진행할 것’만 기다리며 믿고 산다면, 그 희망은 아무 유익 없이 끝나게 된다.
16.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는 대로만 역사가 이루어진다.
17. 지구 세상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수십억 명이나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면 유익이 된다 생각하고, 혹은 사후에 좋은 세계에 간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수십 번이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돌이나 나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본인은 물론 그 자손들도 삼사 대까지 고통과 저주로 대한다.”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자를 안 믿으면, <그 육>도 사망권에 처해 살고, <그 영>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역사하신다.
18.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희망했던 것들’이 안 되면, 고생만 하고 끝난다. 신앙의 세계, 미래 영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진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지만, 결국 희망만 품고 살다가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2016년 1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일은 쫓겨야, 서두르기 때문에 많이 한다.
2. 일에 쫓긴다고 일을 줄이면, 그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없다.
3. 쫓길 때, 초능력으로 시간을 쓰게 된다. * 이 잠언을 받게 된 동기 - 늘 일에 쫓기다가 오늘 아침에도 일에 쫓긴다고 매일 50부씩 오는 편지를 10부로 줄이라고 담당자에게 편지했다. 그리고 새벽부터 아침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께 이야기하며 “그냥 매일 50부씩 편지를 받고 답을 할게요.” 하니, “내가 도와줄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내가 운동할 때 ‘이에 대한 답’을 주셨다. 선생은 평소에 1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 매일 하는 ‘샤워’ 말고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운동을 30분밖에 못 한다. 30분밖에 없으니 운동을 그만큼 못 할 것 같지만, 그날은 시간에 쫓기

니 더 마구 땀다. 결국 1시간 운동하는 날보다 더 많이 한다. 이때 깨닫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을 받았다.

4. 일에 쫓긴다고 일을 줄이면, 줄인 일을 가지고도 내내 또 쫓긴다. 일에 쫓길 때, 초능력으로 시간을 쓰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감당하게 된다. 여유가 있으면 '시간 축지'가 안 된다.

5. 겉옷을 벗기 싫어하는데, 더우니까 옷을 벗으라고 하면 안 벗는다. - 자기가 결정하고 행하는데, '그 주장'을 꺾는 말이기 때문이다.

6. <몰라서 못 하는 것>은 가르쳐 주면 좋아하지만, <자기가 정하고 하는 것>은 다르다. 옆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싫어한다.

7. 더우면, 자기 스스로 겉옷을 벗는다. <관리할 때>도 그러하다. 답다고 "더우니까 겉옷 벗어." 하며 억지로 벗기듯 하는 관리는 '자유를 꺾는 관리'다.

8. 자기가 결정하고 해 버린 것은 실수했어도 실수한 대로 좋아한다. - 고로 이왕 했으니 "그렇게 하지 마." 하기보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 하며 지도해야 된다.

9. 사람들은 <좋은 땅>을 두고 말하기를 "달걀노른자 같은 땅이다. 금싸라기 같은 땅이다." 한다. <달걀흰자 같은 땅>도 <은싸라기 같은 땅>도 '개발'하면, 월명동같이 '타조 알 노른자 같은 땅'이 되고 '금덩이 같은 땅'이 된다.

10. <사람>도 개발하고 만들기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그만큼 빛나게 된다.

11. <큰 인물>은 '하늘'에서 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만큼 개발하고 만든다.

<2016년 1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휴거 차원>을 높이는 데 있어서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겠느냐. 욕이 '한 가지'만 행한다고 영이 더 변화되어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두루두루' 행하면서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2. 가령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정 경제 차원>을 높이려 한다 하자. '벼농사 하나 잘된 것'을 가지고는 <가정 경제 차원>이 높아지지 않는다. '오곡 농사'도 잘 짓고, '채소 농사'도 잘 짓고, '과일 농사'도 잘 지어야 된다. - 이와 같이 <휴거 차원>을 높이려면, '신앙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잘해야 된다.

3. <국가 경제 성장>도 '한 가지'만 잘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수출과 수입도 잘되고, 국민들 모두가 잘돼야 전체가 차원이 높아진다. - <휴거 차원>도 그러하다. 두루두루 다 잘해야 차원이 높아진다.

4. 학교 공부도 <모든 과목>을 잘해야 '전체 성적'이 좋아지지, <한 과목>만 잘한다고 '전체 성적'이 좋아지지 않는다.

5. 항상 <전체>를 잘해야 변화되어 <차원>이 높아지는 것이다.

6. <한 가지>만 잘하면, '잘한 것'만 상을 받는다. <한 가지>가 '전체'가 될 수 없다.

7. 글씨를 쓸 때도 <전체>를 잘 써야 잘된 것이다. <몇 글자>만 잘 썼으면 '잘 쓴 글씨'만 좋게 평가받는 것이다.

8. <전체를 잘하는 자>는 '정말 큰 자'다.

9. "나는 <한 가지>를 잘하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하는 자들은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들이다'.

10. 흔히 지도자도 평신도도 "나는 잘하는데, 왜 그렇게 잘하라고 하며 말이 많냐?" 한다. <그 면>은 잘했으니 '잘했다'

는 평가'를 하지만, <다른 것>도 잘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 선까지>만 개발했으니, 그 선까지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깨닫고 대하고, 대함도 받아라. 하나님의 법칙이다.

11. <수학 과목> 하나 잘했다고, 잘 못 하는 <과학 과목>까지 잘했다고 알아주지 않는다. - 다만 <수학> 잘하듯 <과학>도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할 수는 있다.

12. <휴거의 차원>도 높이려면, '다' 잘해야 된다.

13. 비싼 옷 입었다고 부자라고 봐 줄 수 없다. '그 옷'만 잘 입었다고 봐 준다.

14. 자세히 알고 대하자.

15. 춤이나 노래나 '각종 예술 중의 하나'를 잘한다고 귀히 대했다. 그러나 <신앙>이 안 좋으니, 결국 '사망'으로 갔다. 끝까지 주와 함께 가려면, <신앙>이 좋아야 된다.

16. <예술>은 날아도 <신앙>이 못 날면, '예술할 때'만 빛나고 끝난다.

17.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말씀을 행하기'다. 그리함으로 '구원과 휴거'를 이뤄야 된다. 모두 다 구원받고 휴거되면 좋지만, '자기가 해야 될 신앙'을 안 하고는 구원도 휴거도 이룰 수 없다.

18. 어떤 재능자라도, 인물이 좋은 자라도, 어떤 간판과 명예를 가진 자라도 '그것'으로 구원받고 휴거될 수 없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어 배우게 하여라. 그리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매일, 매주 듣고 행하게 해 주어라. 경제인도, 명예자도, 인물이 뛰어난 자도, 예술인도 결국 <그들이 가진 것>은 '개인 것'에 불과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기 활동'에 불과하다. 그들도 전능자의 말씀 앞에는 '아기들'이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고로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하여 구원받고 휴거되게 해 주어라. <시대 구원자>를 깨닫게 해 주어라. 이것이 '새 역사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사명'이다.

19. 영계에서 보면,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자들이 많다. 왜 그럴까? '신앙의 핵과 일체 되어 행하지 않는 연고'다. 첫째,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 구원자'와 일체 되기다. 그를 중심에 놓고 모두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둘째, '주가 보낸 자'와 일체 되어 행하기다. 이것의 차원을 꼭 높이기다! 안 보인다고, 멀리 있다고 '자기 삶,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믿고 행하며 사니, 그 영도 주와 떨어져서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가서 살고 있다.

20.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역사가 펼쳐져 나간다. 모두 <자기 혼과 영의 형체>가 어떻게 갖춰졌고 변했는지 보아라. 영계에서 보면 다르다. 겉과 속은 다르다. <주>께 배우지 않으면, '주 차원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주의 교육>대로 행하지 않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행하면, 100년을 해도 다른 방향에서 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대로'를 좋아하여 그쪽으로 가면서 '주'를 만나기 원했으나, 주는 '소로'로 다니며 행한다. 고로 혼자 가다가 말게 된다. 그래서 주께 배우고 주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다. 수시로 기도하며 수시로 대화하며 주께 묻지 않고, 성령과 하나 되지 않은 상태로 행하면, <자기>를 '주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지 못한다.

21. 얼마나 '미인의 형상'을 많이 갖췄느냐에 따라서 '미인'으로 인정하고 선호한다. 많이 갖추수록 '미인'이라고 인정한다.

22. 얼마나 '두꺼비'를 많이 닮고 '두꺼비 형상'을 많이 갖췄느냐에 따라서 '두꺼비'로 인정하고 선호한다.

23. 집을 살 때도, 옷을 살 때도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많이 갖춰져 있느냐에 따라 선호하고 좋아하여 구입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주 앞에도 그러하다. 얼마나 ‘삼위의 형상, 주의 형상’을 많이 갖췄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와 주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25. <삼위가 좋아하는 자, 원하는 자>가 되려면, ‘삼위가 좋아하는 것’을 행해라. ‘삼위가 원하시는 것’을 행해라.

26. <주와 같은 생각>으로 행해야 ‘자기 영’도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27. 한 인생, 한 구원자다.

28. <성자의 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닮기’다.

29. 주가 보낸 <주 증거자>와 일체 되어라. 주 앞에 각자 ‘개성’으로 뒀다 해도 ‘주가 세운 자’와 일체 되어 행해라. 그 사람은 ‘그 차원으로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따라간다. 고로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30. <영>에 속해 알고 행해라.

<2016년 1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깊은 인봉의 말씀 오늘은 깊고 깊은 인봉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꼭 써먹기 바랍니다.

1. 왜 끝까지 해야 되겠느냐. <끝>에 가야 ‘끝’이 나오기 때문이다.

2. 왜 끝까지 해야만 되겠느냐. 끝까지 다 해 놓은 후에 계산해서 점수를 주어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3. <끝까지 가는 자>만이 ‘승리’한다.

4. <끝>에 가야 ‘원하던 것’이 있다.

5. 끝에 가야 <희망의 문>이 있어 열고 들어가서 <꿈>을 이룬다. 고로 끝까지 해라.

6. 어떤 사람이 땅을 사면, ‘땅’보다 거기에 있는 <돌과 나무>를 본다. 아름다운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모양과 형상이 있는 돌이나 바위가 얼마나 있는지, 큰 돌이 얼마나 있는지 본다. 하나님도 ‘사람의 육’이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 혼과 영>만 보신다. 혼과 영을 영원히 구원하고 휴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혼과 영>이 영원히 남아지기 때문이다.

7. 그 사람의 <혼과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만 최고로 보신다.

8. 산은 <땅 자체 값>도 있지만, 그 산속에 ‘돌과 나무와 보화가 얼마나 있는지’를 본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도 그러하다. <그 혼과 영>이라는 보화가 ‘얼마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지’를 본다.

9. 어떤 사람이 산이나 논이나 밭을 살 때, 그 땅에 보물이 되는 돌이나 나무가 있는지, 기타 돈이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보듯이,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한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에 오면, 그가 ‘얼마나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며 사는지’를 보신다. - 이것을 최고의 보화로 여기신다.

10. 자기가 나무나 돌을 좋아하면 그것만 좋아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돌이나 나무나 보화로 보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사랑하고 투자해라.

11. <사람의 뇌>는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생각하는 대로 형성되어, 그것을 발달시키며 기뻐한다.

12.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돈’이나 ‘보화’, 또는 ‘어떤 작품’, 또는 ‘어떤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것으로 보고 대해라. 그렇게 안 보고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의 밑>으로 보고 대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자’로 간주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로 취급하여, 때가 되면 용서가 없는 심판을 하신다.

13.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좇는 것이 될 수도 있다.

14.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자기에게 보화’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보화>는 ‘사람’이다. <최고의 보화>는 ‘혼과 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다.

16. <자기가 좋아하는 것>인 ‘돌이나 나무’가 있다 하자. 그것을 ‘자기가 최고 사랑하는 자’로 보아라. 또 ‘창조주 하나님, 성자와 성령’으로 보고 귀히 대해라.

17.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소나무’나 ‘형상 바위’다. 고로 하나님은 ‘소나무’나 ‘바위’를 ‘하나님 상징’으로 정하시고, ‘성자와 성령 상징’으로 정하라고 하셨다. - 깊고 깊은 인봉이다. 그 소나무나 바위에 빠져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라는 것이다.

18.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산>을 좋아하면 그 산을 ‘자기 상징’으로 정하여 자기화하고, <어떤 작품>을 좋아하면 그 작품을 ‘자기 상징’으로 정하여 자기화한다.

19. 모세 때 하나님은 <시내산>을 ‘하나님 상징’으로 정하고, 모세와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신의 산’, 혹은 ‘여호와와 산’으로 부르게 하셨다.

20. 믿는 자들이 <성전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궁’으로 여기며 좋아하고 기뻐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성전>을 ‘삼위일체’로 상징하게 하여 “성전이 곧 나다. 하나님같이 보아라.” 하셨다.

21. <자기를 닮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상징’으로 한다.

22. <돌>도 자기를 닮았으면, ‘자화상’으로 정하고 뜻을 둔다. <나무>도 그러하고 <샘>도 그러하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 했고, 혹은 <모리아 산>을 ‘하나님 성전의 언덕’이라 했고, ‘여호와와 산’이라고 했다.

23.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산>을 ‘자기가 최고로 섬기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로 보아라.

24. <월명동>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상징’이다. 고로 ‘여호와와 산’으로 본다.

25.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너희 각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상징하게 하여 보아라. 그래야 물질만 좋아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며 좋아한다. 그래야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자, 삼위일체’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대하기 때문이다.” 하셨다.

26.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로 보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것’을 통해 ‘상징체’로 나타나 보여 주고 깨닫게 해 주셨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본체>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상징체>를 통해서 나타나 대화하시며 그 뜻을 전하시고 말씀하신다.

28. <월명동>은 하나님의 자연성전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상징’이다. 고로 <상징하는 만물>을 ‘제2의 자신’으로 보이시며,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29. <야심작>을 ‘백보좌 형상’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보좌’를 상징하게 하셨다. <백보좌>는 곧 ‘하나님 상징’이다.

30.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바위, 반석, 산, 나무들’을 들어서 ‘하나님 상징’으로 정하게 하셨다.

31. <의미>를 알고 ‘상징’으로 해라.

32.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를 상징’하게 하는 것이다.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만물’을 들어 ‘자신을 상징’하게 하셨다.

<2016년 1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최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 <성령님이 최고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도 없이 각종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시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3.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가짓수>만큼, 성령님은 아름답고 신비하시다.

4.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으로 존재하면, 아름답고 신비하다.

5. 사람도 ‘여러 가지’를 갖추고 행하면, 아름답고 신비하다.

6. <돌 하나>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을 갖췄으면, 그 가짓수대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7. <한 지역>도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을 갖췄으면, 그 가짓수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8. <월명동>은 ‘백보좌 형상, 여자 자궁 형상, 별 형상, 자미원 형상, 여자가 서 있는 형상, 여자가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 있는 형상, 남자가 사진 찍는 형상’ 등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을 갖췄다. - 그 가짓수만큼 지형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9. <모양과 형체>도 갖춰야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얼마나 그곳을 쓰시느냐’가 그리도 큰 것이다.

10. <정말 아름다운 집>이 있다 하자. ‘집 자체’도 크지만, ‘누가 거기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의미가 좌우된다.

11. <크고 신비한 지역>이 있는데 ‘한 농부’가 산다 하자. 그러면 그 지역은 ‘구경거리’만 된다. 그런데 그곳에 ‘큰 인물’이 산다 하자. 그러면 ‘그 인물’과 함께 ‘그 지역’은 더욱 빛나게 된다.

12. <돌 형상>이 ‘동물 형상’인데, ‘어떤 동물 형상’이냐에 따라서 더 가치 있고 신비하다.

13. <사람 형상을 갖춘 돌>이 현 지구 세상에서는 제일 비싸다. 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다.

14. <단순한 형상>은 가치가 적다. 얼마나 자연적으로 세밀하게 닦았느냐에 따라서 ‘가치’도 ‘아름다움’도 ‘신비함’도 좌우된다.

15. <성자바위>는 ‘여러 가지 형상’을 갖췄다. 그 형상은 사람 형상 이상의 것이다. 곧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성

자 형상’이다. 그리고 ‘인독수리 형상’을 갖췄다. 또 ‘동물 형상’도 갖췄는데, 지상에서 최고 빠르기의 왕인 ‘치타 얼굴 형상’이라서 더 빛이 난다. 이 형상들은 사람이 구상하여 깎은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 그래서 그리도 신비하다.

16. <큰 집>이나 <큰 나라>는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다.

17. <월명동 자연성전>도 돌, 나무, 잔디성전, 운동장, 산책로, 등산로, 건물, 샘들, 수영장, 호수 등을 갖추었다. 또한 해발 400m 높은 지역이어서 공기도 좋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곳에 ‘청중’이 모여들어 쉬고, 삼위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각종 행사를 한다.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펴는 곳’이며,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난 곳’이다. <자연성전>은 세상에서 갖출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갖춰져 있기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18. 개인 땅이든, 국가 땅이든, 어느 지역이든 ‘하늘과의 사연이 있는 곳’이면 더 유명하다. 거기에 ‘하늘과의 사연이 있는 돌이나 바위나 나무’가 있고, ‘물과 호수와 샘들’까지 갖춰져 있으면 그리도 가치 있고 뜻이 있다.

19. <핵>이 갖춰져 있어도 모르면, 그 사람은 가치 없이 재미없이 기쁨 없이 쓰니 ‘유익’이 없다.

20. <월명동 감람산 등산길>은 ‘시대 보낸 자’가 반세기 동안 길이 닦도록 다닌 곳이라서 그리도 사연이 깊다. 고로 더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 ‘지역’도 중요하지만, ‘누가 썼느냐’에 따라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21. <물건>이 다 비슷해도 ‘큰 자’가 썼으면, 더 가치 있게 본다.

22. <감람산 집터골>은 나무를 하러 다닌 지역이기도 하지만, 시대 보낸 자가 산(山)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린 지역이다.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본다.

23. <대둔산>은 시대 보낸 자가 21년 동안 성삼위를 대면하며 수도생활을 한 지역이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성삼위께 영광 돌리고, 시대 하늘의 계명을 받은 곳이다. - 마치 구약 때 시내산, 신약 때 감람산같이 쓰여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다.

24. 구약의 <시내산>이 유명하듯, 신약의 <감람산>이 유명하듯, 성약 때는 <대둔산>이 유명하다. <대둔산>은 ‘모양’과 ‘갖춘 것’만 봐도 구약의 시내산, 신약의 감람산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다. 이와 같이 <성약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고로 크고 아름답고 높은 차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마지막’에는 과거보다 더 전체를 최고로 이상적으로 만들고 행한다.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최고로 미련 없이 원한 없이 행하시며 뜻을 이루신다. 마치 농부가 농사지은 후에 ‘알곡’과 ‘과일’을 미련 없이 거둬들이듯,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 성약 때>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미련 없이 원한 없이 마지막으로 최고로 행하실 때, 이때가 우리에게도 기회다!

25. 사람도 마지막에는 자기 능력껏 최고로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랴!

26. <최고의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맞았으니, ‘자기’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최고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이루어라. - 그렇게 ‘육 평생, 영 영원히’ 기뻐하며, 삼위일체를 모시고 사랑으로 살기다!

<2016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한 번의 역사>다. 정말 잘해야 된다.

2. <각종 병·죽을 고비·각종 사고·각종 문제>를 넘기고 이겨야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사탄·마귀·악>을 이겨야 ‘생명권’에서 살게 된다.

3. <사탄·마귀·악>에게 지면 ‘사망’이 삼켜서 ‘영이 죽은 격’이 되어 ‘사망’에서 살게 된다.

4. <의>를 행해야 '생명권'에서 살게 된다. <의>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가 보낸 자를 통해 전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용서받아 죄 없이 사는 것이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해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잘못 가르쳐 주면 그 수고가 헛되게 되고,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섬기듯 성삼위를 믿고 살게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막연히 우상 섬기듯 믿고 섬기지 말아라. <전능하신 신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는 것이다.
7. <신과 같이 사는 삶>이란, 삶 속에서 늘 부르고 생각하고, 할 말이 있으면 대화하고, 물어보고, 마음과 행실을 일체 시켜 같이 살고,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사랑하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같이 행하며 사는 삶이다.
8. 하나님은 <우상>을 심판하신다. 고로 <우상>은 믿어도 '구원'이 없고, 불려도 '대답'이 없다. 그 영들이 '사망 지옥'에 있으니,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끊어져서 대답할 수가 없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은 부모나 형제를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만도 못하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편, 선 편'에 있으니 그 공적으로 인해 죽은 부모나 형제를 불렀을 때 그 영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화>는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허락해야 하게 된다.
9. <구원받지 못한 영들>이 잠시 '선영계'나 '지상영계'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영들과 대화할 수 있다. 그 영이 '신접한 자들'에게 임해서 속삭인다. 그러나 잠깐뿐이다. 그 수준은 '그 육이 살아 있었을 때의 수준'에 불과하다.
10. 악귀들도, 선한 영들도 '신접한 자'에게 임한다. 고로 영들이 '신접한 자'를 통해서 돕기도 하지만, 더러는 이용하기도 하고, 더러는 속이기도 한다. 더러는 신접한 자가 사람들을 속여 착취하기도 한다.
1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길 때는 '한 나라의 왕'을 섬기듯 해서도 안 된다. 삼위일체는 '절대 신'이며 '영원한 존재의 신'이다. 세상 왕들은 몇 년 하다가 말고, 한 세월을 하다가 만다. 또 절대 신도 아니다. 형제들 중에 나와서 '지도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도자의 주권'을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관하신다. 고로 세상 왕이나 지도자를 섬기더라도 질서에 의해 순복하고 순리로 행하면서 존경해라.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12. <인생>도 '한 번'이고, <새 역사>도 '한 번'이다. 잘해야 된다.
13.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떤 사고나, 죽을 고비나, 어떤 문제나, 병을 넘기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끝난다. 이와 같이 <한 번뿐인 인생>에 찾아온 <한 번뿐인 하나님의 새 역사>에 왔는데, 사탄이나 악이나 불의를 이기지 못하면 '생명권'에 속하지 못하고 '사망권'으로 간다. - 정말 잘해야 된다.

<2016년 1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큰 잠언

1. <잠언>은 '해당되는 데에 합당한 말'이다.
2. <잠언의 말씀>은 '해당되는 데'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3. <잠언>을 '해당되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쓰면, 이치가 안 맞는 말이 된다.
4.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도 말을 못 하는 것'과, '안 보이지만 서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 하나님은 '안 보이고 대화하는 것'이 더 좋아서, 그같이 하신다.
5. <대화>가 크다. <대화>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다 말해 주기 때문이다.
6. 대화해라. 말해라. 안 하는 자는 식물인간 인생이다.

7. 사람은 눈으로 봐도 ‘자기 인식’대로 보고 생각한다.
8. 어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봐도 ‘자기 생각, 자기 차원’대로 생각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대로 크게 못 본다.
9. 사람이고 신이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10. 눈으로 못 봐도 대화하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말로 다 표현한다. 그러면 90% 이상 본 것같이 알 수 있다. 고로 ‘보기만 하고 말을 못 하는 것’보다 ‘안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삼위일체를 못 보지만 대화할 수 있는 쪽’을 허락하셨다.
11. <대화>가 끊어지면 죽은 시체 신앙이요, 식물인간 신앙이다.
12. 기도로 대화, 생활의 대화다.
13. 대화해야 ‘비밀’을 알게 된다.
14. 하나님 앞에 절대 ‘조건’을 세워야 주는데, 사랑하는 자라도 조건을 못 세우면 못 주신다. 그럴 때는 ‘다른 센터의 조건’을 세우게 해서라도 주신다.
15.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가 안 된다. 이때는 ‘회개의 대화’다.
16.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다. 1600년 후, 후손 노아 때 다시 대화하셨고, 함이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또 400년 후, 아브라함 때 아브람과 그 자손들과 대화하셨다.
17. 대화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밤’을 맞이한 것이다.
18. <대화>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바로 ‘자기 주관의 삶’으로 빠진다.
20. 섭리사든, 개인이든, 교회든 안 가르쳐 주면 ‘자기 주관의 삶’이다. ‘절대 말씀대로 살기’다.
21. <작은 것>까지 의논하면, 그것도 가르쳐 주신다.
22.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생각’으로 형성되어 ‘질그릇 인생’ 정도로 끝난다.
23.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구상대로 살기다.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떤 존재물이나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그 센터에서 더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 없으면, 그 것이 ‘제일 나은 것’이 된다.
2. 완전하게 갖춰져야 마음에 쏙 들고 자기 것으로 삼는데, ‘80%’밖에 안 갖춰져 있다 하자. ‘더 완전하게 갖춰진 마음에 드는 것’을 찾게 되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게 된다. 그런데 ‘80% 갖춰져 있는 것보다 더 이상적이고 좋은 것’이 없으면, ‘80%만 갖춰진 것’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최고의 것’이 된다. - 사람도 물건도 그러하다.

3. 세계 최고의 물건 전시회가 열렸다. 어떤 사람이 <최고의 것>을 사려고 전시회에 가서 돌아다니며 다 봤다. 그런데 '70%는 갖춰져 있고 30%는 안 갖춰져 있는 물건'이 있었다.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그 물건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면 그 물건이 그 종류의 물건 중에서는 세계 최고의 보물인 것이다. - 이같이 분별하고 행하여라.
4. 만일 이 세상에 <100% 갖춰져 있는 것>이 많다면, 100% 갖춰져 있으니 값도 비싸고, 100% 귀한 것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많으니, '개성의 왕 노릇'은 하되 '홀로 왕 노릇'은 못 한다.
5. 100% 다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 면에서 그만큼 갖춘 것>이 '그것 하나'라면, '홀로 귀함'을 받게 된다.
6. 물건은 <등급>에 의해 '값'이 좌우된다. 그러나 <수량>에 의해 다시 '값'이 좌우된다. - <등급이 높은 귀한 물건>이라도 '수량'이 많으면, 그만큼 '값'이 떨어진다.
7. 그래서 사람들은 집도, 건물도, 환경도, 예술품도 그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을 만들어 '소유권 가치'를 지니려 한다.
8. 하나님은 '인생들 각 사람'에게 '한 지역'을 주면서, 삼위일체를 중시하여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만들게 하셨다. 곧 '구원과 휴거'다. 그런데 하는 자도 있고, 안 하는 자도 있다.
9. <외적인 것>은 '모두 아는 것'이고, <내적인 것>은 '혼자만 아는 비밀'이다. -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냐고 물으니, '고유의 문법을 쓰는 최고의 존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다.
10.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는 '목사'라고 알고 있지만, <내적>으로 보면 '사명'이 다르다. 사명을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다.
11. 뜻을 이루려면, '자기만 아는 내적 비밀'을 지켜야 된다.
12. 구시대 사람들은 <속>은 고사하고 <겉>을 보고도 모른다. 왜? 무지에 속해 사니 <겉>까지 '비밀'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13. 사람의 상식으로든, 어떤 생각으로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된 것이 당연하다. (이 잠언은 <내적인 비밀>이라 혼자만 알고 지나간다. 말씀을 쓴 자와 말씀을 정리한 자만 아는 비밀이다.)
14. <외적인 것>은 '같이' 즐기고 쓰고 사연을 나누며 이야기하지만, <내적인 것>은 '자기'만 알고 삼위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고생을 하기도 하고, 삼위와 함께 즐기기도 한다.
15. 모두 '같이' 알고 차원 높여 얻고 살자고 '모두'에게 가르쳐 주지만, 아는 것만 좋아하고 스릴을 느끼지, 같이 행하지를 않는다. 고로 <내적인 비밀>은 '혼자'만 알고 '행하는 자'에게만 말해 주고 '삼위'와 같이 고통도 받고, 기쁨도 누리게 된다.
16. 고로 행해라. <말씀>대로 행할수록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가르쳐 주며 '같이' 받고 '같이' 누리게 하신다.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새로운 땅>은 새로 만들어야 되니, 좋아도 힘이 든다.
2. <새로운 곳>은 '이전에 살던 곳'과는 다르니, 어색하고 낯설다. 또 그곳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 처음에는 몸에도 마음에도 잘 안 맞아서 '이전에 살던 곳'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3. <새로운 곳>도 ‘개발’해야 전보다 낫지, ‘그대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며 이전보다 못하다.
4. 월명동도 ‘개발’하니, 그 자리에서 <새로운 땅>이 된 것이다.
5. 사람도 ‘자기’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것이다. 시대 말씀으로 자기를 합당한 데까지 새롭게 다듬고 개발하여 만들기다.
6. <한 단계>를 해야, <다음 단계>가 생각나서 하게 된다.
7. <집>도 ‘한 단계’ 더 닦아야 ‘다음 단계에 해야 할 것’이 생각나서 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집을 다 지어야 ‘그다음 단계’로 가서 이사하여 살게 된다. 만사의 모든 것이 이러하다. ‘행해야’ 그 단계에서 차원 높일 것이 보이고, 다음 단계로 가게 된다.
8. <길>을 닦는 만큼, 갈 수 있다.
9. <잠언>을 받아도, ‘그 단계’에 가야 받는다.
10. <잠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깨닫는 단계’로 가게 되고, ‘행하는 단계’로 가게 된다. 그리고 행해야 ‘그다음 얻는 단계’로 가게 된다.
11. <실천자>만 ‘실천의 인봉의 문’을 열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
12. <행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미개척지 세계’다. <행함>으로 탐험하게 된다.
13. 잘될 수 있는데, 행하지를 않는다.
14. 잘못 행하면, 잘못 행한 만큼 ‘손해’가 가고 ‘해’가 된다.
15. 절대 ‘확인’이다. 절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뜻’대로 행하기다. - 그러면 이미 확인하고 가는 길이니 빨리 가게 되고, 삼위와 주의 뜻대로 행했으니 그 공적이 영원한 세계에 남게 된다.
16. 백지장 너머 할 일인데, 몰라서 길을 찾는다.
17. <차원을 높일 때>는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올바르게 알았으면, 끈질기게 행하기다. 하다가 말면 실패한 것이다.
18. 이제 휴거 시대가 되었고, 어떻게 휴거되어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으니, 모두 <휴거>를 이루고 <휴거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조건’을 행하지 못하여 조금씩 휴거된다. 만사에 전력을 다해야 표가 나게 되고 변화도 크게 이루어 <휴거>도 이루어진다.
19. <큰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큰 행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른 데 시간을 쓰고, 큰일을 하는 데도 적은 시간을 쓰니 표도 안 나고 세월만 간다.
20. <지혜>는 ‘판단’이다. 제대로 판단하고 감행해라.
21. <돌 조각가>들은 정으로 찍어 돌을 깨서 조각하는데, 정으로 돌을 찍는 횟수를 셀 수가 없다. 완성될 때까지 수만 번이고, 수십만 번이고 계속한다. <자기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 휴거시키는 것’도 그러하다.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라. 결국 ‘자기 것’이니 욕심내서 해라.
22. <세상의 것들>은 만들어 놔도 ‘육신’이 잠깐 사용하고 떠난다. 그러나 <휴거>는 ‘영원히 자기 것’이 되어 땅에서

‘육’이 평생 누리고, ‘영’이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서 영원히 누린다. <자기 육>을 가지고 ‘자기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서, ‘천국 황금성’을 얻어 영원히 누리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은 <휴거된 자들이 육의 세계에서 귀히 쓰던 귀중품>을 ‘기념’으로 만들어 주어 천국 황금성에서 영원히 쓰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도 행실도 제대로 못 한 자는 <영>이 구원받지 못하여 사망으로 가서 죽었으니, 안 해 주신다.

23. <육신이 죽은 자>는 ‘세상의 것’을 못 받고 못 누리듯이,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24.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더라도 <영>이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 세계’에서 끝난다.

25. <육의 세상>은 지나고 보면 ‘일순간’이다.

26. 말만 인생 60년, 70년, 80년, 100년이지, 늙어서 90세 이상 되면 ‘걷는 정도’만 하고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정도’다. 말만 ‘인생 백년’이다. 인생 길다고 속지 말아라. <감육>에서 직접계 살아도 시간은 금방 간다. 그런데 <세상 밖>에서 바빠 사니, 시간이 오죽이나 금방 가겠냐.

27. 하나님은 인생들이 겨우 커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구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이 행하여 ‘영’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에 올 수 있는 시간만 주셨다. 그 시간이 인생 100년이다. 이 시간은 세상에서 놀면서 육만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다.

28. 주인이 농부에게 <씨앗>을 주면서, “너는 씨를 뿌리고 키워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추수하여 90%는 내가 갖고, 나머지 10%는 나에게 가져와라.” 했다. 이에 농부가 “그 기간을 얼마나 줄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주인은 “1년 주겠다.” 했다. 그러니 농부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줍니까?” 했다. 그런데 막상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키워 보니, 곡식이 빨리 크지도 않았고 시간도 금방 갔다. 퇴비를 하고 잡초를 뽑으면서 일하다 보니 여름 장마 때가 되었고, 그러다 겨우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다 보니 9월이 되었다. 주인의 말대로 ‘추수한 것의 10%’는 주인에게 주고, ‘남은 것’은 방앗간에 맡겨서 찼고, 집 창고에 넣어서 쌓았다. 그러니 벌써 10월이 지났다. 조금 더 있으니 눈이 왔고, 1년이 다 지나갔다. <인생 일생, 인생 100년>도 이와 같다.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영의 농사, 육의 농사’를 지으며 살다 보면, 인생 일생 참 짧다.

29. <인생 100년>은 ‘육의 농사, 영의 농사를 합쳐서 딱 한 번 지을 수 있는 기간’이다. -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시간을 주지 않으신다. 인생 농사를 잘 지었어도 다시 시간을 안 주시고, 인생 농사를 못 지었다고 사정을 해도 시간을 아예 줄 생각도 안 하신다. 또한 인생 다 늙었으니 다시 시간을 줄 수도 없다. - 이것을 알고 살아라.

30. 인생 <육의 농사>에서 끝나면, 마치 ‘농사를 안 짓고 끝나는 자’와 같다. <영의 농사>를 지어야 ‘자기 육의 마음·정신·생각’이 ‘자기 혼, 영’과 결합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육의 농사를 지으면서 영의 농사를 지을 기회’를 <인생 100년> 딱 한 번만 주셨다.

31. 영의 농사를 지을 기회는 인생 100년 한 번뿐이다. - 이것을 비유로 들어 말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이 ‘먼 길’과 ‘가까운 길’, 이 두 개라고 하자. 이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하여 ‘한 번’만 걸어가면,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목적지까지 간다. ‘두 번’ 걸어가길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인생 농사’를 잘 지었으나 못 지어서 아쉬우나, <인생 100년>은 ‘한 번’ 살면 끝나게 된다. 고로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하늘이 무너지도록 탄식하고 땅에 지진이 나도록 발을 구르면서 해도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32. 모두 알았으니 ‘매일’ 미련 없이 살아라. ‘일주일’도 ‘한 달’도 ‘일생’도 미련 없이 살아라. 다 가르쳐 줬는데 섭리인들이 못 하면, 가르친 자도 “아깝다.” 하지 않고 ‘못 한 자들’은 뇌에서 지워 버린다. 그리고 ‘잘한 자들’만 데리고 살다가, <그 영들>을 ‘천국 황금성’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산다.

33. 내 말을 들어라. <육계>에서는 미인을 보면, “저 사람과 같이 못 살아서 아쉽다.” 한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다르

다. <육>이 아무리 미인이라도 <휴거된 영>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육>이 섭리사에서 제일 못생겼어도 구원받고 휴거됐다면, 그 <영>은 ‘섭리사에서 육이 최고로 예쁜 사람’과 비교해도 아예 비교가 안 되게 예쁘고 아름답다. 영의 키는 2m가 넘고, 몸은 최고의 비율 S라인이다. <육>은 하나만 잘생겼다면, <휴거된 영>은 앞, 뒤, 옆 모든 지체가 잘 생기고 아름답다. <휴거된 영>은 어디에도 그 아름다움을 비할 수 없다. <구원받고 휴거된 영>은 어디에도 그 아름다움을 비할 수 없다. <육>이 아무리 미인이라도,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연예인이기도 <휴거된 영>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영>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그 얼굴을 보면 마치 양손으로 자기 얼굴을 짹 누르고 쥐어짜서 찌그러지고 찌그린 것같이 생겼다. 그 모습을 보면 ‘앗! 무섭다!’ 하고 놀라서 눈을 질끈 감는다. 혼계에서 보면, 모두 다 볼 수 있다.

34. <구원받고 휴거된 자의 영>을 어디에다 비하나. 누구와 비교하나. <황금 덩이>를 ‘흙’과 ‘돌덩이’와 비교하지 말아라.

35. <육신 멧쟁이>가 섭리사를 나갔다고 해서 충격이 아니다. <휴거된 영>이 크다. <휴거된 영의 가치>는 각종 다른 것들의 가치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된다. 할 일 없이 비교도 하지 말아라.

36. 휴거되기 전에 섭리사를 나간 ‘팔방미인’이 있었다. <육>은 휴거에서 탈락됐어도, 행여 영계에서 ‘그 영’이라도 다시 구원시킬까 하여 가서 만났다. 그런데 영계에 가서 ‘그 영’을 보니, 육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서 겨우 그 여자를 알아봤다. 그 여자는 나를 만나니, 나도 그쪽 어느 지역에 사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쳐다보니, 나를 보고 인사하며 아는 척을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입은 옷’과 ‘자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했다. 그 여자의 키는 1m가 조금 넘었고, 옷은 새까만 까마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다 떨어져 있었다. 영계에 가면 ‘혼자 보고 올 때’도 있지만, ‘그곳에 사는 영들을 만나서 대화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도 그들처럼 영이 실패한 것같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얼굴도 그 영계에 맞게 변장하고, 옷도 그 환경에 맞게 입고 간다. 그러면 그들이 좋아서 나와 이야기한다. 순간 만나고 와야 한다.

37. <휴거된 영들의 육들>을 보면, 다 다르다. 인물이 별로인 자들도 있다. 그러나 <휴거된 영>을 보면 그리도 빛나고, 세상 어떤 미인과도 비교가 안 된다. <휴거 명단>에 오르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것도 마땅치 않다. - “아! <휴거될 영들>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긴긴 세월 6000년 동안 ‘구원역사’를 펴며 섭리하셨구나. 그래서 계시하실 때마다 ‘나는 영을 본다.’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38. <영>은 ‘구원의 차원, 휴거의 차원’대로 빛난다.

39. <구시대급 구원>과 <새 시대급 구원>은 다르다. <새 시대에서 휴거된 영>은 ‘생긴 것’도 다르고, ‘아름다움’도 다르고, ‘빛’도 다르고, ‘천국에서 거하는 곳’도 다르다. <새 시대급으로 휴거된 영들>만 ‘최고 신부의 모습’이며, 이들만 ‘천국 황금성’에 거한다.

40. 세상에서도 ‘왕비가 사는 곳’이 다르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다르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도 ‘별장, 주택, 아파트’ 등 각각 다 다르다.

41. 세상에서도 ‘각자 사는 환경’이 엄격히 다르듯, 영들이 시대별로 구원받고 휴거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휴거된 자의 차원과 사는 곳’이 엄격히 다르다.

42. <월명동>은 ‘사람들이 사는 집’과 다르다. 개인은 ‘월명동 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시대로 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 자연성전>을 주시면서, ‘자기 것’으로 삼고 기뻐하며 살라고 하셨다.

43. 하나님이 주셨어도 신경 쓰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사는 자만 ‘자기 것’으로 느끼고 보람을 누리며 산다.

44. 재벌 카네기도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대하며 살았다. 결국 ‘남의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섭리인 모두에게 주신 <월명동>도 ‘자기 것’으로 삼고 사는 자만 ‘자기 것’같이 느끼고 보람을 누리며 산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것’이다. 삼위의 것을 가지고 섭리사에 땅을 사 주고 구상해 주시어 ‘삼위의 육’을 통해 따르는 자들과 함께 개발하게 하셨다. 이제는 모두! ‘자기 것’으로 알고 관리하고 개발하여라.

45. <자기 것>으로 알아야, 더욱 ‘자기 땅’ 사듯 하고 ‘자기 땅’ 개발하고 관리하듯 한다. <천국>도 ‘자기 것’으로 알고 대하는 자만 가게 된다. 그리하여 영원히 ‘자기 것’이 된다.

46. <월명동>도 ‘쓰는 자의 것’이다.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관리해야 된다. 마음·생각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육>이 되어 사랑하고 관리하면, ‘행하는 자의 것’이 된다.

47. 모두 ‘개인 집’을 짓고 살 수 없으니, 합동으로 ‘궁궐’을 지어서 신부들이 모여 <신랑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다. 곧,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48. <천국>도 ‘전체의 것’이면서 ‘개인의 것’이기도 하다.

49. <생각>이 무지하면 세월이 가도, 보고도 못 누린다.

50. <만들지 못한 자들>에게 만들어 놓고, 주면서 쓰라고 했다. 그런데도 가치 있게 쓰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화동하면서 같이 쓸 줄 모르느냐.

51. <누릴 수 있는 좋은 세월>이 다 가고 있다. 어서 깨닫고 누려라!

52. <하나님이 1차 창조하신 세계>에다 국가에서 ‘제2창조’를 하여 공동으로 쓰도록 만든 것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동으로 쓸 것’은 못 쓰고, ‘자기 집’이나 ‘자기가 돈 내고 산 것’만 누리고 산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니, 결국 자기 돈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다. 고로 100% 누려라.

53. 찾아보면, ‘국가와 같이 쓰고 누릴 것’이 많다.

54. 악한 자들, 먹고 놀면서 갈취하는 자들이 머리를 써서 ‘국가가 혜택 주는 곳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누리고 있다.

55. 하나님은 해마다 개인·민족·세계에 <연말 심판>을 하시어, 곡식들을 갈취하여 자기 것으로 모아둔 쥐들을 다 잡으시고, 그 쥐들이 가져간 알곡도 다 빼내신다.

56. 시간이 없다. 어서 <휴거>에 전념하고, 제때 <차원>을 높여야 된다.

57. 각종 새들아, 네 머리로 살면 ‘좋은 것’을 생각하다가 시간 다 가고, ‘수준 낮은 것’을 행하다가 세월 다 간다. 몸은 약해도 ‘독수리 머리’로 살면 훨씬 낫다. 그러면 힘 안 들이고 좋은 것을 구상하고 생각하니, ‘생각할 시간’이 늘어나고 ‘힘들게 할 것’을 쉽게 한다.

58. 새들아, 왜 ‘필요 없는 짓’을 하느냐. 놀아라. 계절이 오면 된다. 왜 크지도 않은 잎을 따느냐. 잎이 10배, 20배씩 커져서 저절로 떨어진다. 또, 때가 되기 전에 터를 닦으면 발톱만 아프니, 사람들이 밟고 간 곳을 이용해라.

59. 너는 왜 네 동료들을 괴롭히며 짓어 대느냐. 너만 목이 아파서 목병이 나고, 너만 뇌에 정신병이 나서 괴롭다. 남들 농사지을 때 그 짓 하다가 겨울이 닥치면, 너만 지옥 고통으로 창자가 마른다.

60. 너는 ‘마음·생각·행동의 시동’을 끄고서, 끌고 가고 밀어 가면서 운전하고 있느냐. 시동을 켜라.

61. 세월이 가도 제자리에서 네 볼 일만 보고 있느냐.

62. 인생, ‘<자기 몸> 수백 개를 겸용한, 하나님이 주신 최첨단의 보배로운 생명 덩이’다. 놀리지 말아라. 행하여라!
63. 왜 <필요 없는 것>을 계속 행하느냐. 뇌가 ‘그것’에 중독이 되어 ‘그것’을 해야 좋으니, 자꾸 ‘그것’을 하게 된다. - <제대로 하는 자>를 보고서 고치고, <시대 말씀>을 듣고서 고쳐라.
64. 꿈에 보니, 주부 두 명이 아스팔트 도로를 청소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바람을 내뿜는 펌프를 가지고 양손으로 펌프질을 하면서, 도로에 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날리면서 청소하고 있었다. 이 도로는 길이 100m, 넓이 10m가 넘는 도로였다. 이렇게 청소한 곳은 깨끗했지만, 너무 힘들게 청소하고 있었다. 펌프질을 수백 번씩 해야 겨우 한 줄기의 먼지가 날아갔다. 내가 보니, 둘이서 넓은 길레로 쪽 밀고 왔다 갔다 하면 100배는 빨리하겠건만, 일을 해도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다.
65. 이와 같이 쉽게 할 수 있는데, 힘들게 하지 말아라. <육적>으로 하면 힘들다. <영적>으로 해라. <다른 방법>으로 해라. 육적으로, 그 방법으로 하다가는 세월 다 간다. 계시이니, 모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잘 보고, 힘들게 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라. 기도해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내라.
66. <상대가 힘들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편해도 싫어하신다.
67. 하나님은 ‘제 발로 걸어서 같이 걷는 것’을 좋아하신다.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같이 하는 것’을 그리도 좋아하신다.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천국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2. 그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면,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산다.
3. 자기가 좋아하면 뇌 조직과 신경도 그같이 굳어서 좋아하니, 다른 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모른다.
4.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이단>이든 자기가 좋으면, 좋아서 섬기며 따라간다.
5. 우상이고 이단이라도 자기는 모르니, 알 때까지 <우상>으로 안 보고 <이단>으로 안 보고, 100%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간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각 사람의 급수, 각 사람의 차원’대로 꿈에도 보여 주시며 계시해 주시고, 생시에 생활 할 때도 말씀하며 계시해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신다.
7.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8. <종교>도 ‘자기 뇌 차원’대로 ‘자기 급수, 자기 차원’대로 선택한다. 자기는 모르니, ‘먼저 말한 사람의 말’을 듣고 쏘린다.
9. <우상>을 섬기고 <이단>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보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왜 상식을 벗어나서 믿고 살까?’ 하며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몰라서 그러하다.
10. 모르면, <죽는 길>도 좋아서 희망으로 돈을 투자하며 간다.
11.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안 믿으면, <영>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

12. 어릴 때 모르고 종교를 택하여 모를 때 믿고 모를 때 배우니,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항상 좋게만 가르치고 “선하게 살아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하고 가르치니, 좋아하며 <우상>을 받아들이고 섬긴다. 또 그같이 가르쳐 준 자를 존경하며, 자기 욕도 영도 맡긴다. 그가 그렇게 살다가 좋은 세계로 갔다고 하며 가르치니, 그를 우상으로 모시고 믿고 섬기며 사는 것이다.

13. <우상의 지도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고로 그도 사망으로 가고, 우상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를 따라 사망으로 간다. 모두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14.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삼사 대까지 형벌한다.” 하셨다. -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 종교’를 심판해 오셨다.

15. <우상>이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인간, 그 신상을 섬기는 것’이다. 동이나 쇠, 나무나 돌로 ‘어떤 사람이나 형상’을 새겨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이다. 절대 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다 ‘인간 우상들’이다.

16.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상의 교리’를 가르치며, ‘우상이 된 그 인물을 섬기며 그 가 행했던 것’만 가르친다.

17. <우상을 섬긴 자들의 영>은 ‘그 욕’과 함께 이미 ‘사망권’에서 살고 있다.

18. <이단>이 무엇이나.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믿지 않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19. <이단>은 ‘자기’에 맞춰 교회를 만들고, ‘자기’를 메시아화하여 믿고 섬기게 한다.

20. <이단>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교리를 가르친다. 역시 구원이 없다.

21. <진리>를 벗어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

22. <진리>로 ‘구원’을 받는다.

23. <틀린 전화번호>를 가지고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과 통할 수 없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24. 절대 <진리>만 이루어진다.

25. 아무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어도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6. <틀린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면, ‘원했던 곳’은 안 나오고 ‘딴 세상’이 나온다.

27. 가령 어떤 나라에서 <세계 올림픽대회>를 한다고 하여, 어떤 사람이 그 나라로 가는 티켓을 사려 한다 하자. 그런데 유혹하는 자가 티켓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돈만 받고 다른 곳을 알려 줬다 하자. 그러면 그가 ‘원했던 곳’에 가겠느냐. ‘딴 곳’에 가 있게 된다. <올바르고 정확한 주소>는 ‘온전한 진리’와 같다. ‘유혹하는 자’가 ‘진리’를 자기 좋은 대로 맞춰서 풀면 그 사람도,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딴 세계’로 가고 만다. - 이는 절대적이다.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28. 30년, 40년, 50년 전 한국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하면서, “2000년도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 말세다. 준비해

라.” 하고 외쳤다. 30여 년 전에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 재림을 외치며 100만, 150만, 200만 명씩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말은 ‘비진리’이기에 지금 2000년도가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안 오셨다. 그때 나는 <재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아니라고 했다. 왜? 이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1000년이 가도 그렇게는 안 온다. 하나님은 ‘정한 날’의 하루도 안 넘기고 행하신다. 성경에 미리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춰 섭리해 오셨기 때문이다. 모르는 자들은 모른다. 아는 자만 안다. 하나님은 ‘아는 자’를 통해 행하신다.

29.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간다. 메시아를 보낸다.” 예언하셨고, 그 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온다.” 하시며 희망으로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소수만 조용히 맞고 끝난다.

30.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 아는 자’만 알고 행한다. 그 외는 해당이 안 되니, 알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

31.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을 낳고 기뻐서 말하기를, “내 아들이 크면, 한 기간을 두고 <혼인 잔치>를 할 것이다.” 하고 온 민족에 소문을 내며 희망을 주었다. 이에 백성들은 ‘어린 황태자’가 어서 크기를 기다렸다.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를 그토록 기다렸다. 그러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생각하기를 “나이를 계산해 볼 때, 혼인 잔치를 할 때가 넘었는데도 안 하네. 아직 안 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다. 그러면서 모두 기다리기만 했다. 그러나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는 이미 하고 끝났다. ‘혼인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했다. <초청자>만 초청하고 끝났으니, 나머지는 모르는 것이다. <국가 행사>도 그러하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불러서 한다. 그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행사’에 해당되어 가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림 역사>도 ‘해당되는 자들, 예비된 자들’만 ‘시대 복음’을 듣고 따라간다.

32. <구약 때>도 “메시아가 온다.” 하는 말씀은 구약인 전체에 소문이 나 있었고, 그것을 핵심 교리로 가르치며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들 주관권’에서 오지 않았다. ‘딴 세상’에서 왔다. ‘새로운 지역’에서 왔다.

33.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입 다물고 따라갔다.

34. <개인·가정·국가·역사의 비밀>도 ‘처음 아는 자’만 알고 입 다물고 행하며 간다. 모두 알면, 못 하기 때문이다.

35. 하나님도 <크고 은밀한 뜻>은 처음에는 절대 ‘한 사람’에게만 전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번져 나가게 하신다.

36. 메시아가 왔어도 <시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메시아를 알게 되고, ‘안 받아들이면’ 메시아를 모른다. <시대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에게는 ‘메시아를 아는 진리’를 주지 않는다.

37. <세상 끝>에는 다 드러난다. 하나님은 ‘뜻’을 다 펴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주관권 안’에서만 서로 이야기하게 하신다.

38.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온 세계’로 번져 나간다.

39.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 때문에 까놓고 안 한다.

40. 가령 어떤 한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하자. 그런데 거기 있는 자들에게 알리면, 행사를 못 하게 된다 하자. 그런데 자신들이 누구라고 ‘국적’을 말하고 ‘소속’을 말하겠느냐. ‘자신들이 목적하는 것’만 하고 갈 뿐이다. 무리 중에 서로 알고 같이 행할 자들이 있으니, 서로에게만 얼굴을 보이면서 ‘원하는 것’을 하고 떠난다.

41. 하나님이 <새로운 뜻>을 펴셔도 ‘하나님을 100% 믿고 사랑하며 그 뜻을 알고 따르는 자들’만 알지, 아무도 모른다.

42. <그 일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 아는 것이다.

43. <꿈>에도 <생시>에도 ‘자기 차원’대로 보여 준다. - 이는 자기 처지, 사명, 삶, 생활, 행위의 급대로 보여 준다는 것이다.

44. <교리>를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면, ‘멸망 길’은 가지 않는다. - 그러나 차원을 높이려면, 절대 <거기에 해당되는 교리>가 필요하다.

45. <구약에서 신약으로 높일 때>는 ‘메시아 예수님이 전하는 시대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고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시대 말씀’을 가르치셨다.

46. 이 시대도 <다음 차원>으로 높이려면, ‘이에 해당되는 교리’가 절대 필요하다.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이 시대 말씀’을 배우고 행해야 ‘다음 차원’으로 간다.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차원을 높이는 방법>은 평소대로 안 하고,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것이다.

2. <무거운 것>을 들 때 ‘보통으로 드는 것’과 ‘더 힘을 내서 드는 것’은 그 차원이 비교가 안 된다. - 이와 같이 평소보다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하면 ‘차원’이 높아진다.

3. 만사의 어떤 일이든지 <차원>을 높이려면,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야 된다.

4. <차원을 높일 때> 그때만 높은 데 오르듯 힘 있게 하면, <오른 후>에는 ‘평지’가 기다린다.

5. <급경사를 오를 때> 그때만 더 ‘힘’을 내서 올라라. 급경사를 지나 다음 차원으로 가면 다시 ‘평지’다. 이와 같이 <차원을 높일 때>도 그러하다. 그러니 <오를 때, 차원을 높일 때> 더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기다.

6. 산을 오를 때도 계속 ‘평지’가 아니다. 가다 보면 ‘오르막길’이 나온다. 이때는 더 ‘힘’을 내서 올라야 된다. 그래야 정상에 도달한다. 정상에 도달하면, 더 이상 오르지 않아도 된다.

7. 보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더 ‘힘’을 내야 된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일단 다 오르고 나면, 더 오를 곳이 없다. 정상이다.

8. <신앙 차원, 휴거 차원을 높이는 것>도 그러하다. 2단, 3단, 4단으로 차원을 높일수록 더 ‘힘’을 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못 오른다.

9. <차원을 높일 때>는 더 ‘힘’을 내야 하니, 그때가 힘들다. 그러나 차원을 높여서 ‘다음 단계’로 가면, 그때부터는 안 힘들다. 보람과 기쁨이다. 흘린 땀과 수고가 아깝지 않다.

10. <자기 위치에 머물지 않고 연속해서 차원을 높이는 자들>은 더 힘을 내서 높이 올랐다가, 오르면 잠깐 쉬면서 충전하고, 다시 더 힘을 내서 높이 올랐다가, 또 오르면 잠깐 쉬면서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매일, 매달, 매년’ 계속해서 차원을 높인다.

11. <차원을 높이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아라. 부담스러워하지 말아라. 올라가는 데 힘이 안 들겠냐. ‘오를 때’는 힘들지만, ‘오르고 나면’ 힘들지 않다. 차원을 높이며 이것을 경험한 자들은 ‘차원을 높일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이기며 끝까지 한다.

12. 쭉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 선’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 차원의 마지막>은 ‘제일 급경사’이고 ‘오르막길’이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더 힘을 내서 오르면 올라가진다.

13. 어떤 일을 하든지 차원을 높일 때는 <마지막>이 '제일 급경사'다. 그때 힘들다고 포기해 버리면 '수고한 것'이 헛되고,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한다.

14. <그 일의 끝>에 가서 '마지막 오르막길'을 오르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때는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부르고, 주도 부르고, 지도자도 부르고, 도와줄 자도 부르고, 자기도 더 힘을 내면서 끝까지 올라라. 끝까지다! 고비를 넘기고 한계를 넘기면 '다음 차원'이다.

15. 항상 <그 일의 맨 끝>이 제일 힘들지만 그 '오르막길'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평지'처럼 편안하고 '수고의 대가'도 받고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한 차원씩 높이는 것이다.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가 완전해야 <치수>도 완전하다.

2. <자>에 착오가 있으면, 아무리 평생 재도 <치수>가 틀리다.

3. 첫째, '말씀을 정확하게 받기'다. 둘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기'다.

4. 정확하지 못한 만큼 손해가 간다.

5. 말씀은 항상 100% 완전하게 주는데, 전하는 자가 75, 80, 85, 90, 95%만 전한다. 그만큼 손해다.

6. <같은 말씀>을 줘도 왜 '전하는 자'마다 다르게 전할까? '자기 수준, 자기 심정, 자기 실력'대로 전하기 때문이다.

7. <전하는 자>가 음성, 발음, 강약, 심정, 이해도, 기도, 성령 충만이 부족하니, 항상 100% 제대로 못 전한다. 고로 설교자들은 꼭 '차원'을 높여야 된다. 차원을 높이려면, 기도해라.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심정을 받기 위해 꼭 기도해라. 그리고 자기부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읽고, '아멘' 하며 받아들여라. 그리고 더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외쳐라. 그러면 차원이 바로 올라간다.

8. 선생이 어릴 때 기성 교회에 다닐 때였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어, 혼자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심정이 뜨거워지면서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신령한 상태에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혼자 '성경'을 놓고 읽었다. 그냥 읽지 않고 음성, 강약, 발음에 더 신경을 쓰고 심정을 다해 외치면서 읽었다. 그때부터 은혜가 되면서 마음이 뜨겁고, 마치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들렸다. 그 심정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교회에서 외치니, 사람들이 즉석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울면서 따랐다. 모두 그리해야 된다. 이같이 외치면, <듣는 자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워져서 '그들의 영'을 살린다.

9. 교역자가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 된다. <부흥되는 교회>는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이며,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잘 못 가르치고 설교를 잘 못 하기 때문이다.

10.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설교, 관리, 교육, 운영 등'이다.

11. 차원을 높인 자가 보면 안다.

12. <설교자>가 죽은 설교를 하면, <듣는 자들>의 신앙도 죽이게 된다.

13. 성령으로 설교를 뜨겁게 하면,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온다.

14. <듣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안 오는 이유는 대개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이다.

15. 외치는 자들은 설교를 읽으면서 내용 전달만 하지 말고, ‘성령의 불’이 오게 제대로 전해야 된다. 전하는 자 자신이 먼저 불을 받아야, 외칠 때도 불이 나간다.

16. <성령 충만한 자>는 소리를 안 지르고 외쳐도 불이 온다. ‘외치는 자 본인’도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전해야, ‘듣는 자들’도 말씀을 듣고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뜨거워진다.

17. 설교자들은 설교가 끝난 후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불’이 나가더냐고 물어보아라. 친한 몇 사람에게 묻지 말고 전체를 파악해 보아라. - 설교가 끝나고 즉시 확인해야 된다. 실습이다. 확인이다.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기다. 그래야 차원이 높아진다.

18. <설교자>는 성령으로 뜨겁게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졸고 은혜를 못 받고 불을 못 받는 자들도 있다. 많지는 않다. 이런 자들은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19. <듣는 자들>도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설교자>도 성령 충만, <듣는 자들>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20. <사랑>도 남녀 둘 다 뜨거워야 마음도 몸도 흥분되고 사랑을 느낀다. 이와 같이 <설교>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둘 다 뜨거워야 은혜와 감동을 받고 불을 받는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100% 완전하게 주신다. 이것을 진정 인정하고 깨달아라. 그러나 그 상대인 <인생들>이 문제다. 하늘 입장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

22. 오늘부터 당장 최선을 다해 보아라. 차원을 높여라. 삼위일체는 항상 상대인 인생들에게 100% 완전하게 주신다. 그런데도 은혜와 감동과 불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 ‘본인 문제’다.

23. 지금 당장 해 보아라. 100% 행해 보아라. 그러면 그 날 당장 불이 붙고, 응답을 받는다.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24. 어떤 사람이 가정 핍박으로 힘들어하기에 편지해 주었습니다. “너 과거에 건물이 무너질 때 거기 안 가게 해서 안 죽고 살게 해 줬는데, 가정 핍박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냐. 모르고 거기 갔으면 죽었을 텐데,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못 가게 한 것이다. 부모가 너를 살렸냐. 전능자 하나님이 살려 주셨으니, 너를 살려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핍박 이기고 살아라. 그리고 부모 위해서 기도해 줘. 그래야 앞으로 또 너를 보호하시고 살려 주신다. 부모는 몰라서 못 살린다. <육>도 보호하여 살려 주시고, <영>도 구원하고 휴거시켜 천국에 가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사냐. 그러다가는 사망이 삼킨다. 그러면 영원히 고생한다.”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며칠 후에 내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정말 감동받고 깨달아서 - “힘들어도 변치 않고 잘할게요. 제 생명을 살려 주셨으니, 평생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굳건히 살겠어요.” -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이야기하면서 각오하고 결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쳐다보고 싶어서 봤답니다. 그때 ‘살찐 큰 새가 벌레를 쫓아 입을 짹 벌리고 잡아먹으려는 구름 형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내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각오하니, 사탄도 핍박도 마음과 생각에서 다 이겼구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니, 즉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응답하셨구나.’ 하고 깨달았다며, 편지와 함께 구름 형상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섭리 전체’도 그러함을 깨닫고, 오늘 잠언으로 그 사연을 전해 줍니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행해야 됩니다!

25. <누구도 못 살리는 영과 혼>을 살려 영원히 살게 해 줬으니, 어떤 유혹도 환난도 핍박도 이겨야 된다. 지면, 사망과 사탄이 삼킨다.

26. 자기가 정신 차리면, 얼마든지 사탄도 인사탄도 유혹도 핍박도 다 이긴다.

27. 악평자와 악인의 말을 들으면, 그로 인해 ‘악평자와 악인의 편’에 서는 것이 되어 ‘사망권에 있는 자’가 된다.

28.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멀쩡했던 사람>도 차 사고가 나든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실수하면, 금방 ‘시체’가 되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방금 전까지 신앙이 멀쩡했던 사람>도 순간 어떤 일을 당하거나 실수하면, 금방 ‘신앙 시체, 신앙 불구’가 된다. 고로 항상 ‘자기 생명 관리, 자기 생각 관리, 자기 영 관리’ 다.

29. 순간 실수하여 사고 나면 다치든지, 불구가 되든지, 죽든지 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순간 ‘생각 실수, 행동 실수’ 하면, 그렇게 된다. 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자기 관리하기, 기도하기’다.

30. 매일 정신 차리고 생각을 온전히 하고, 섭리사의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여라. 그리고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살아가라.

31. <자기 몸>도 병나지 않게, 병이 낫게 ‘매일 신경 쓰고 관리하기’다.

32. 뭐든지 ‘관리’하지 않으면 ‘존재’를 못 한다.

<2016년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일을 하며 실제로 뛰는 자들에게 필요한 잠언

1. 최선을 다해야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온다.

2. 최선을 다해야 만드는 것도 완성하게 된다.

3. 최선을 다해야 목적지에 간다.

4.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가다가 말고,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오지 못하고 남기게 된다.

5. 최선을 다한 자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다 받는다.

6. 가령 집이 없는데 때가 되니 집을 주고, 성전이 없는데 때가 되니 성전을 주고, 운동장이 없는데 때가 되니 운동장을 주고, 차가 없는데 때가 되니 차를 준다 하자. - 최선을 다하면 받는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중에서 한 두 개를 못 받는다. 고로 얼마나 손해나.

7. 최선을 다한 자는 <황금성 천국>에 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자는 <그 주변>에 가고, 더 못 한 자는 <그다음 주변>에 간다.

8.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그리했겠느냐.

9. <확인하고 보는 것>과 <확인 전에 보는 것>은 아주 다르듯, <육의 눈으로 보는 것>과 <혼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

10. <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듯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혼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11. <육의 눈>은 ‘육계에서 보는 눈’이다. 고로 ‘육계의 것’이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혼의 눈>은 눈 자체가 달라서 ‘육이 본 것’을 <혼>이 다시 보면, 더 아름답게 크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인다.

12. <혼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보면, 더 차원이 높아서 더 달리 보인다. 고로 더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보인다.

13. 월명동도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혼의 눈>으로 보면 차원 높게 달리 보인다.

14. 사람은 보이는 대로 감탄하고 기뻐하고 좋아한다.

15. 아무리 잘 만들어 놔어도 차원이 낮으면, 보통으로 본다. 고로 보통으로 기뻐하고 즐긴다.
16. <차원이 낮은 자>는 '황금성 천국'에 가서 봐도 차원 낮게 본다. 고로 별 반응이 없다.
17. 차원이 낮으면 '금'인데 '은'으로 보고, '은'으로 인지하고 믿게 된다.
18. <차원이 높은 자>는 '근본'을 보니, 제대로 더 가까이 본다.
19. 행한 대로 보고 받듯이, '실력과 시력과 차원'대로 본다.
20.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한다. 자기 취향 차이도 있지만, '자기 실력과 시력과 차원'대로 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봐도 달리 본다.
21. <차원 낮은 자, 육적인 자>는 만물도 사람도 한 차원 낮게 보니, 보통으로 스치면서 본다.
22. <차원 높은 자>가 알고 얻게 된다.
23. 만물도 사람도 '차원'대로 얻고 취한다.
24. 가령 <똑같은 한 장소>를 봐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며 샀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며 안 샀다. 왜 그럴까? '아는 차원, 보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산 사람'이 차원이 높았다. 왜일까? 모두 따져 보고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니 '그 장소'가 제일 좋기 때문이다.
25. <똑같은 집>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사고, 안 사람은 안 샀다. 알고 보니 '안 산 사람'이 잘했고 차원이 높았다. 왜일까? 같은 값을 주고 다른 데서 '더 좋은 집'을 샀기 때문이다.
26.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지능을 높여라. 차원을 높여라. 그리고 더 찾아다녀라.
27. 따지기, 계산하기, 비교하기 - 차원 높이기다.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28. <차원이 낮은 자>는 아무리 '좋은 것'으로 했어도 '그 차원'에서 한다. 그러니 '한 차원 높은 곳'에서 '최고로 안 좋은 것'으로 한 것만 못하다.
29. <초등학교에서 최고로 차원이 높은 6학년>은 <중학교에서 최고로 차원이 낮은 1학년>보다 차원이 낮다. 육계와 영계의 질서가 이러하다. 고로 <육적인 자>는 '혼적'으로 '영적'으로 차원을 높여라.
30. 영의 세계에서 <구약 영계 - 신약 영계 - 성약 영계>는 각각 다르다.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시대'에 따라 역사하신 대로 행하여 '그 차원'으로 영계가 만들어진다. <종> 다르고, <자녀나 형제> 다르고, <애인이나 신부>는 각각 다르다.
31. 빌딩도 겉에서 보면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들어가 보면 '크기, 모양, 형상,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다르다. '가격'도 다르다.
32. 육계도 영계도 '그냥 겉에서 보는 것'과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은 다르다. 차원도 각각이다.
33. <한 차원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34. <더 좋은 것>을 얻고, 또 <최고의 것>을 얻어라. 그 속에 '차원 높은 것'도 들어 있고 '차원 낮은 것'도 다 들어 있다.
35. <항금성 천국>에는 '일반 천국의 것, 선영계의 것'까지 다 들어 있다. <최고의 것>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36. <좋은 집>에는 '금 그릇, 질그릇, 은그릇, 동 그릇'이 다 있으나, <그보다 차원이 낮은 집>에는 '금 그릇'은 없다.
37. <최고로 큰 것>을 얻으면, '차원 높은 것들'뿐 아니라 '그 아래 차원의 것들'까지 다 얻은 격이 된다.
38. 기도하고, 전도하고, 관리하고, 가르치고, 자기도 계속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기'다.
39. 주와 같이 하지 않는 것들은 차원이 낮다. <주>는 하나님의 손발로 쓰여지니, '하나님적 차원'에 속해 산다. 고로 '주와 같이'다.
40. 악인들은 아무리 차원을 높여도 '보는 눈' 자체가 차원이 낮으니, '사망권의 것들'을 크게 보고 좋게 보고 행하며 산다.
41.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면, 뇌가 그쪽으로 돌아가서 작동되어 그것을 기어이 하고 만다.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하고 나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고 나서 그리도 기뻐하고 좋아한다.
42. 자기 생각에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무엇을 하기 원하면, <뇌>는 그쪽으로 돌아가 시동이 걸린다. 고로 '그것'을 기어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나쁜 것'이라면 꼭 끊고 잘라야 된다.
43. 미디어도, 이성의 호기심도, 각종 육적인 것들도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다. <마음>에서는 하면 안 된다 생각해도 <뇌>가 그렇게 움직이니 결국 하게 된다. 그러나 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지혜>는 '분별'이다. '판단'이다. 고로 무엇을 할 때는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나서 행해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꼭 생각하고 행해라.
44. <그 일을 함으로 인한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현재>만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차원이 낮은 자'다.
45. 자기가 행하는 일을 잘 보아라. <앞날>까지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차원이 높은 자'다.
46.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으며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다. 쌓다 보니 벽돌 한 장이 모자라서 이미 쌓은 벽돌을 빼다가 쌓았다. 얼마 안 있으니 벽이 무너졌다. 그 벽돌은 꼭 거기에 써야 될 것이었다.
47. 영계에서 보고서 하면, 확실히 알고 행한다. 고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48. <자기 차원>이 낮으면 '차원 높은 자'에게 보고 듣고 판단하고 계산해 달라 하고서 해라.
49. <자기 차원>이 낮으면 하나님이 '큰 것, 좋은 것'을 주셨어도 '차원 낮은 것'으로 알고 차원 낮게만 쓴다.
50. <자기 차원>이 낮으면, '금'을 '은'같이 쓴다.
51. 지도자가 <차원>이 낮으면, '사람'을 제대로 못 다루고 못 쓴다. 그러니 교회도 부서도 발전이 안 된다.

52. <자기 차원>이 낮으면, 사기를 당해 놓고 또 당한다.
53. 지혜자는 다 확인한다.
54. 확인하니 강도요, 절도요, 사기꾼이었다.
55. 확인하니 ‘은’이 아니라 ‘금’이었다.
56. <확인>이 ‘신’이다.
57. <아는 것>이 ‘신적 차원’이다. <신적 차원이 되게 하는 것>은 ‘100% 확인’이다.
58. 확인하니 건물은 큰데, 건물의 핵인 사용할 장소는 작았다.
59. 확인하니 간판은 크고 좋은데, 내용은 라면을 파는 곳이었다.
60. 사람도 ‘겉’만 보면 판단할 수 없다. ‘속’을 봐야 된다. 속을 보면 뛰고 달리는 것에 따라서 실력이 각각 다르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행하게 해 보아라.
61. 서울은 ‘겉’과 ‘속’이 달랐다. 겉은 멋있는데 속은 아니었다.
62. 다윗은 ‘겉’과 ‘속’이 달랐다. 겉은 작는데 속은 컸다.
63. 꺾어 보아라. 그래야 안다. <확인하는 것>이 ‘꺾어 보는 것’이다.
64. 차도, 집도, 물건도, 사람도 ‘속’을 보면 다르다.
65. 속을 보려면 ‘확인하기’다.
6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준 것>은 ‘겉’으로 보면, 다른 것들과 똑같아 보이고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속을 확인할수록 가치도, 의미도, 차원도, 내용도 다르다.
6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준 것은 <겉>만 보면 ‘똑같은 밭’인데, <속>을 보면 ‘보화가 묻힌 밭’이다. 확인해야 다르다는 것을 안다.
68. <보화가 없는 밭>과 <보화가 묻힌 밭>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69. 갈매기가 바다에서 확인하지도 않고 ‘썩은 조개’를 주워서 좋아하며 가지고 날아간다.
70. 어린아이는 바다에 가서 ‘먹고 버린 조개껍데기’를 주워 집에 가지고 가서 삶아 먹자고 한다. 엄마는 버리라고 한다. 엄마가 그것을 버리니 어린아이가 울면서 다시 주워다 속을 확인했다. 확인하니, ‘속 없는 껍데기’였다. 그 후부터는 조개를 주을 때마다 죽은 조개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고 가지고 온다.
71. <썩은 조개>도 ‘껍데기’는 장식품으로 쓴다.
72. 사명을 받고 일하는 자들아, 꼭 확인이다. 분별이다. 판단이다. 자꾸 찾아보고, 찾았으면 꼭 확인해라. 확인하면 ‘속’을 알게 된다. 고로 온전하게 판단하고 행하게 된다. 실수가 적어진다.

1. <자기 무지>는 ‘자기’에게 지장을 준다.
2. <자기 무지>로 인해 ‘자기 영’이 지옥까지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3. <타인의 무지>로 인해 ‘아는 자’도 해를 받는다.
4. 그러므로 <무지>는 ‘인간의 생각과 행위’에서 사라져야 된다.
5. <배우고 아는 자>가 ‘무지의 괴물과 뱀과 사탄’을 뜨거운 용광로에 속 시원히 넣어 버리는 자다.
6.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이며 권세인지 깨달아라!
7. <구원과 휴거>에 대해서도 모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거저 주셔도 못 받는다.
8.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휴거>를 주시니, 배우고 알고 행하기다!
9. 그러나 <구원과 휴거>를 주실 때는 ‘말씀의 씨’로 준다. 메시아를 통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기 육과 생각’을 가지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하면서 ‘구원과 휴거의 농사’를 지어야 된다.
10. 이 세상에서 <구원과 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11. <보냄을 받은 자>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연과 뜻’을 알려 주어 믿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만 가르쳐 주며 행한다.
12. 세상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를 받아들인 소수의 무리만 알고 따라가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약속하신 뜻’을 펴 나갔다.
13. <무지>는 ‘캄캄한 흑암’과 같다. 고로 전혀 안 보이듯 전혀 모른다.
14. <아는 자>는 알고 행하여 얻고 누리면서, 얻은 것이 남아서 버리면서 산다. 그러나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모르는 자>는 무지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휘청거리며,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아서 또 허리끈을 졸라매고 기어가면서 산다. <아는 자>가 먹고 누리면서도 말을 못 한다. 말을 해 주면, 불신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기 때문이다. 들개들이 전해 줘도 그마저 듣지 않는다.
15.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을 통해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와서 모두 ‘빛’으로 나와라! 그제야 자기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지를 통탄한다.
16. <이 시대 구원자>, 곧 <이 시대의 빛>은 ‘이 시대 진리와 구원과 생명과 휴거의 빛’이다.
17. <이 시대에 진리에 굶주린 자들> 중에서 ‘진리를 듣고 먹은 자’만 힘이 나고, 기뻐 뛰고, 그 힘으로 모르는 자들이 하는 악평과 모진 불신과 핍박을 다 이기고, 이 시대에 행할 것을 행하며 간다.
18. 어린 소년이라도 ‘진리’를 들어 알게 되면, ‘그 아는 것’으로 인해 어른들의 무지와 이 시대 온 민족의 무지의 생각을 꺾어 버리고 앞으로 달려간다. - 이는 하나님은 ‘아는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때마다 ‘아는 자’를 쓰고 행하신다.
20. 이 시대에 가장 핵으로 알아야 할 것은 ‘시대 구원자’다! 그다음은 ‘이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과 ‘휴거’다! 알면 무

지도, 답답함도, 비진리도, 사망도, 인사탄도, 사탄도 다 꺾어 버린다.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휴거 말씀> 안에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들어 있다.

22. 하나님은 <휴거 역사>를 위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6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진행하셨다.

23.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면, 허무하다. 하나님을 믿어도 허무하다. 신약 역사는 알아도 부분적으로만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24.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서 ‘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25. 휴거되면, 성삼위는 <휴거된 영>을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최고 좋은 ‘황금성 천국’을 주시어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 <황금성 천국>은 천국에서 ‘성삼위가 계신 곳 다음으로 좋은 곳’이다. 그곳은 ‘성삼위가 계신 곳 옆’에 있다.

26. <휴거>를 꼭 배워야 된다. 휴거에 대해서 모르고 휴거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27. 모르면 - 실수하여 억울함과 각종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알면 – 그 날 죽는 데서 살게 된다.

28. 죽음에 처했을 때 기도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깨닫게 하시며 알려 주셨다. 고로 살았다. - 알아야 산다!

29. 알아야 ‘영’도 살고 ‘육’도 산다.

30. <인생 최고의 성공>은 ‘알고,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31. <인생 최고의 성공>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며, ‘그에 따라 행하며 사는 것’이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알고 행하며 사는 자가 ‘최고로 성공한 자’다. 이는 ‘영원한 성공’이다.

33. <육에 속한 성공>은 마치 ‘일생 중에서 하루 잘되고 끝나는 격’이다. <영원히 잘되는 것>이 ‘성공’이다.

34. 사람은 ‘영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된다.

35.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하고 육이 죽으면, 그 ‘영’은 매일 바위에다 머리를 수만 번씩 찢으며 ‘자기 육’을 원망한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과 혼>과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36. 아무리 세상 예술·정치·경제·학문 세계에서 성공하여 명예를 얻고 화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안 보신다.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미쳐 좋아하며 한 끼 먹고 끝낸 것으로 보신다. 자기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켜 사는 자를 크게 보신다. 이는 <곡식>을 ‘씨’로 하여 벌판에 뿌리는 자로 보신다. 이런 인생은 육도 영도 수백 배로 거두어 누리게 된다.

37. <이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이 세상에서 잘못 생각하고 살면 큰일 난다. 자기는 큰 죄는 안 지었으니, 육이 죽으면 ‘영’이 천국은 아니더라도 ‘선한 곳’에 가서 살겠지... - 생각하지 말아라. 100% 알아보지 않고서는 ‘자기 생각, 인식, 추산, 예측’을 믿지 말아라. 확인하면 다른 것들이 많다.

38. <자기 시간과 정성과 생각과 행실>을 ‘씨’로 하여 ‘자기 영’을 위해 ‘하늘’을 위해 뿌리지 않으면, 육신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망뿐이다.

39. 젊었을 때 세상에서 육적으로 그리도 휘날리며 살던 자라도 인생의 해가 넘어가니 가련한 모습이다.

40. <자기 육의 인생>을 마치 곡식을 가지고 한 끼 음식 만들어 먹듯 쓰고 끝내지 말아라. ‘씨’로 하여 뿌려야 된다. 그래야 남긴다.

41. <자기 혼과 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지만, 모두 자기 의지와 생각이다. 오직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믿고, 시대 구원자를 믿고, 그가 주는 시대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된다. - 절대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자기 영>도 천국에 가서 그대로 존재한다.

42. 현재 육이 행한 대로 미래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이 형성되면서 존재하게 된다. - 이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43.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마치 <차>가 ‘길’을 따라 가듯이, <사람>도 ‘생각의 길’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 고로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된다. ‘헛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44. <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면, 가도 헛수고다. 길을 잃는다. 이와 같이 <생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면, 행해도 헛수고다. 인생의 길을 잃는다. - <생각>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기다.

45. 사람은 생각이 꽃힌 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산다.

46.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마음과 생각의 차원’을 알 수 있다.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47.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해야 편해하고 기뻐한다. 고로 불의해도 의로워도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맞춰서 산다.

48. 인생들은 편하게 살려고 그리도 연구하고 뛰고 달린다.

49. <자기 영>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야 최고로 편하다. 고로 고생해도 자기 영을 구원하고 천국을 얻기 위해 살아야 된다.

50. 고생해도 <생명길>로 가라. 그 길이 결국은 <최고 편한 길>이다.

51. 음식도 체질이 되면 거의 못 바꾸고 평생 체질대로 산다. 이와 같이 <생각과 사고>도 체질이 되면 평생 못 바꾼다. 그 생각과 사고가 잘못됐어도 불의해도 못 바꾸고, 그로 인해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게 된다.

52.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까지, <생명의 말씀>까지 ‘자기 체질과 생각’에 맞춰서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한다. 고로 황금성 천국에도 가지 못한다. 휴거되다가도 차원 낮은 단계에서 끝나게 된다.

53. <절대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최고 천국 황금성’에 못 간다.

54. 사람도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절대 ‘자기 최고 위치’는 안 준다.

55. 스마트폰도 입력된 대로 터치해야 그 화면과 프로그램이 나온다. 하나님 앞에도 ‘절대 뜻’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그 코스를 통과하여 황금성 천국을 상속받는다.

56. <절대 행할 것>은 절대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

57. <절대 행할 것>은 절대 행하고 갖춰야 주시니, '시대 보낸 자'도 21년 동안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세우고 나왔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절대 조건을 세운 것이다. 그가 50년 동안 무슨 조건을 세웠는지, 모두 다 본 자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아신다. <행한 것>은 속이지 못한다.

58. 대개 '따르던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악평하고,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못 본 자들'이 그들을 따라서 안 믿고 악평한다. 그러나 누가 '그가 행한 것'을 다 봤느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에서 보고 판단했느냐. 다 보고 말해라. 그가 행한 차원에서 똑같이 행하면서 말해라.

59. 절대 행하지도 않았는데 '시대 보낸 자'가 되겠느냐. 절대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위치'로 뽑겠느냐. 절대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60. <절대 조건>을 세웠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의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자는 안 믿고 반대한다. 그러다고 해서 <그가 세운 조건>이 아닌 것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겠느냐.

61. 사람들은 누가 축복을 받으면 '거저 준 것'으로 알고 시기 질투한다. 특히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향해 그리했다. 하나님이 실수로 '사명'을 주고 '축복'을 주시겠느냐.

62. 고로 전도하고 가르쳐라. 가르쳐 주면 놀라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따라 행한다.

63. <무지>는 '어둠'이다. 가르쳐 줘야 '빛'으로 나와서 제대로 본다. 고로 가르쳐라. 배워라.

64.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최고의 휴거>에 대해서도, <시대 보낸 자>에 대해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어라. - 가르쳐 주어 '어둠의 무지'를 벗어나게 하는 자가 그리도 큰 자다. 그리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가 최고로 큰 자다.

6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나님의 뜻, 구원과 휴거, 구원자, 영의 세계'를 가르쳐 줄 때, 최고 힘 있게 역사하신다.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66.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 희망으로 행한다.

67. <최고의 것>을 얻고 사는 자들도 처음에만 만족한다. 몇 년 가니 최고로 사랑하는 자와도 싸우고 헤어지고, 최고의 물건을 산 자도 가치를 상실하여 팔아 버리고, 최고의 땅도 산도 집도 별로라고 하며 팔아 버리고, 최고의 명예도 위치도 버린다. <월명동>도 땅 주인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하며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른 것을 산다고 하며 팔았다. 고로 하나씩 사다가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해 나갔다.

68. 인생 일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고 만족하게 얻고 살 최고의 것은 오직 '하나 뿐'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최고로 좋은 것, 곧 <휴거>다. <휴거>는 '육'에게도 최고의 것이며, '영'에게도 최고의 것이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도 최고의 것이다.

69. 세상에서도 '최고의 것'을 얻고 살면, 그리도 기쁘고 즐겁고 희망차다. - 그런데 <육의 것>이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이 최고다. <삼위가 주신 것>은 받고도 늘 삼위와 대화하며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리도 좋다. 또 그것을 천국에서도 기념으로 주시어 '영'으로도 누리게 하시니 최고 중의 최고다.

70.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든지 어떤 보물이든지, 받았으면 매일 수시로 감사하며 그 사연을 이야기해라. 그래

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번도 “그만해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깊이 알려 주시며 귀히 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 또 얻게 하신다.

71. <휴거>에 대해서도 그리해라. 늘 감사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씩 감사해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차원 높여 알고 행하여 영원히 얻게 하신다.

72.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3년, 10년, 20년 동안 매일 수시로 감사하다고 하며 말했더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에 대해 각종 형상을 보여 주시며 더 깊이 깨닫게 하셨다.

73. 한번은 기도하다가 ‘주먹만 한 돌’을 보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어 ‘그 돌’을 주워 왔다.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신기해요! 정말 좋고 기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했다. 이에 하나님이 “내가 줬다는 이유를 대라.” 하시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쳐 주시고, 혼체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보게 하시고, 그곳에 가 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고 “맞다!” 하셨다. 이 ‘작은 돌’을 줍고 수백 번 사연을 이야기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보다 수천 배 큰 형상석’을 또 주셨다. 두고두고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사연을 나누니, 하나님은 그 돌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그 돌이 왜 좋은지 세밀히 알려 주셨다. - “그런 형상을 갖춘 돌은 네 땅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셨다.

74. 늘 ‘감사’다. ‘사랑’이다. ‘준 자와 같이 기뻐하며 잔치하기’다.

75. <휴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들’보다 ‘수조 배’ 큰데 감사 감격하지 못하고 가치를 모르고 사니, 휴거가 ‘휴가’로 끝나고, 시간이 지나 음식이 쉬듯 ‘변질’된다.

76. <가치>를 알아야 ‘같이’ 산다. <가치>를 상실하면 ‘같이’ 못 산다. 이 말을 꼭 명심하고 기억해라.

77. <좋은 것>도 ‘육적’으로만 보면 잘 모른다.

78. 영계에 가서 영으로 보아라. 그러면 확실하다. 영과 혼은 육보다 지능이 높아서 앞날까지 내다본다. - 고로 기도해라. 기도해야 신령하여 영으로 보고 판단한다.

79.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바로 안 된다. ‘때’가 있다. 가령 어떤 건물을 주신다는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고, 세상 ‘주인의 때’도 맞아야 된다.

80. 기도해서 주겠다는 응답을 받았어도 ‘때’가 돼야 주신다. ‘하나님의 때’도 맞아야 되고, ‘세상의 때’도 맞아야 된다.

81. <구약역사>는 ‘일반 의자’다. 새 시대가 오면 앉아 있을수록 불편하다.

82. <신약역사>는 ‘2000년 동안 편한 의자’다. 새 시대가 오면 앉아 있을수록 불편하다.

83. <새 시대 성약역사>는 갈수록 편하다. 갈수록 좋다. 갈수록 만족이다.

84. <의자>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시대 말씀이며, 시대 성전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85. <휴거 의자>가 최고로 편하다. 갈수록 편하다. 갈수록 좋다. 갈수록 행복하다. 곧 ‘이 시대 휴거 말씀, 휴거의 삶’이다. -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다닌다.

86. <가치>를 모르면 ‘보화’도 별로라고 하며 버린다. 고로 탄 자가 사 가게 된다.

87. <육>도 ‘이 시대 휴거 의자’에 앉아 있고, <영>도 ‘황금성 의자’에 앉아 있으니, 갈수록 편하다. 다른 의자들은 ‘일반 의자’라서 앉아 있을수록 두 다리가 저려 오고 아파서 결국 일어나 버린다. 고로 여기에 ‘좋은 의자’가 있다고 하며

외쳐라. 그러면 ‘좋은 의자’를 찾아다니던 자가 그 말을 듣고 온다.

88. 저 기성인들이 기다리는 대로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기다리는 자들>이 더 희망에 차서 기뻐하며 살고, <휴거된 자들>은 기쁨도 희망도 사라진 채 살고 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니라.

89. 지구 세상 73억 명을 다 뒤져 봐도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딱 한 사람’뿐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만이 <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행한다. 지구상에 ‘휴거 책임자’가 또 있는지, 73억 명을 다 뒤져서 찾아봐라. 상식적으로 있겠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 외에는 정녕코 없다. 살아 있는 자 중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를 찾아야 된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봐야 된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90. <초창기 섭리역사>는 ‘휴거 소생기 역사’였고, 그 후 <섭리사 부활 역사>는 ‘휴거 장성기 역사’였고, 시대 구원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고 나서부터 ‘휴거 완성기 역사’가 시작됐다. <휴거 완성기 역사>는 사명자의 극적인 고통과 희생과 몸부림으로 시작됐다. 이때부터 복직된 하와를 통해 <성령의 역사>도 시작되어, 시대 말씀을 불같이 외치면서 <영적 역사>의 불이 붙었다.

91. 사명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기 시작한 2009년부터 3년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심령들을 녹이면서 각종 죄들을 다 회개하여 태우게 하고, ‘신부 단장’하며 휴거를 위해 준비했다.

92. 그 후 3년 동안 2015년 초까지 성자는 <휴거의 비밀>을 낱알이 밝히시며 <휴거 말씀>을 완전히 선포하시며, 모두 <휴거>에 대해 알고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를 ‘휴거의 몸’으로 단장시키셨다.

93. 이렇게 6년의 기간이 끝나고, 성자는 ‘보낸 자가 세상에 태어난 날’을 <성자 승천 날, 휴거 날>로 정하셨다. 이 날은 <성자의 육>을 이 세상에 보낸 지, 70년이 되던 해다. 또 이날은 <성자>가 그 육을 쓰고 오신 지, 70년이 되던 해다. 또 이 해는 <세계평화기구 유엔>이 창설된 지, 70년이 되던 해다. <성자>가 이 땅에 ‘그 육을 쓰고 오신 해’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유엔’을 창설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면서, ‘세계의 육적 평화’도 다스려 오셨다. <3.16 성자 승천일, 휴거 날>, 이 날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성경에 예언한 날이다. 그 말씀대로 이 날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몰랐다. 다만 성자가 떠나시기 3일 전에 그가 ‘보낸 자’에게만 은밀히 말씀하셨고, ‘준비한 신부들’에게도 은밀히 깨닫게 하셨다. 성자는 3년 동안 계속 “곧 휴거된다. 시간이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며 계속 ‘휴거의 비밀’을 밝히셨고, 2014년 연말에는 <휴거>를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잠잠해졌다. 그러나 2015년 1월부터 ‘징조’가 있었다. 성자는 “네 어머니 곧 세상 떠난다. 그와 같이 나도 곧 떠난다.” 하며, 그 육에게 말씀하시며 은밀히 알리셨다. 결국 2015년 2월 25일 00:00시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6일 동안 장사를 지내고 14일 있다가, 2015년 3월 16일에 성자는 <행사>로 영광을 받으시고, 섭리사 청중들이 있는 데서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승천하셨다. 성자는 항상 ‘보낸 자’를 기준하여 행하셨다.

94. <보낸 자>가 태어나고, 시대 구원자가 태어난 민족이 독립되어 자유롭게 되었다.

95. <보낸 자>가 왔다가 간 후에 ‘구교와 신교’가 하나 되는 역사가 482년 만에 일어났다.

9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보낸 자의 상황’에 따라서 민족과 세계를 향해 행하셨다. ‘시대 기준자’에 맞춰서 지구 세상 민족과 세계와 청중을 움직이셨다.

97. 시대가 ‘보낸 자’를 불신하면, ‘보낸 자’가 대신 짓값을 치른다. 고통도 받고 죽음도 받는다. 그리함으로 시대를 구원한다.

98. <보낸 자>가 ‘시대의 죄’를 대신하면, 사람들이 ‘죄를 대신해 준 자’를 믿고 따라야, 하나님은 ‘그 시대를 향한 뜻’을 펴신다.

99. 항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새 역사>가 왔어도 ‘구시대 기성인들’은 안 따르고 ‘새로운 자들’이 따르며 역사를 펴 나갔다. 신약 때도 그러했고, 성약 때도 그러하다.

100.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이 지나고, 성약역사가 시작됐다. 벌써 37년이 됐다. 하나님은 <지금> ‘최고의 창조 목적 역사’를 펴신다. - 그러나 이때는 ‘한 기간’이다. <혼인 잔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안 하듯, <휴거 잔치>가 아무리 좋아도 계속 안 한다. ‘정한 때’까지다.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다.

101.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재림하신다.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 하며, 희망으로 믿었다. 그러나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니, ‘원자폭탄이 떨어져 터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준비가 안 됐어도 절대 역사는 연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구가 멈추지 않듯이, 하나님은 1분 1초도 어김없이 행하신다. <휴거>도 ‘정한 날’ 행하셨다. 하나님이 틀리게 하시겠느냐. 하려던 것을 안 하시겠느냐. 그러면 뭘 보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100% 행하셨다. <모르는 자>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를 뿐이고, <아는 자>가 말해 줄 뿐이다.

102.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안 자들은 ‘옆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 화산의 용암이 흘러가고, 계속 화산의 용암이 끓어 불이 솟아오르니 믿고 기뻐한다.

103. <최고의 것>을 배우고 <최고>로 행하여 <최고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104. 희망에 불타서 얻으려 하니 졌다. <교회 성전>도 그렇게 하여 졌으니, 희망에 불타서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희망을 이루려고 할 때보다 못 하고 있다.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누려라.

105. <가치>를 알고 행해야 ‘같이’ 살게 된다. 이 말을 잊지 말아라.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06. 하나님의 차원대로 축복해 주신다.

107. 2016년은 ‘교육과 차원의 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가 퍼부어 주며 알려 줄 때, 배우고 행하여 차원을 높여라!

108.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 그래야 전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휴거도 되고, 휴거의 차원도 높이게 된다.

109. <차원>대로 ‘휴거’도 되고 ‘기쁨’도 누린다. 고로 잘 배우고, 깊이 배우고, 확실히 배우고 행하여 차원을 높여라!

110.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야 행해진다.

111. 137억 년의 시간이 걸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르시고, 그 터전 위에 1차로 <구약역사>를 진행하시고, 2차로 <신약역사>를 진행하셨다. 그 터전 위에 3차로 <성약역사>를 시작하셨다. 이 역사는 <휴거>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다. 지금 이때는 성약역사 중에서도 ‘최고의 황금기’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룬 자’를 최고로 크게 보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고로 <휴거된 자>에게는 ‘최고로 좋은 황금성 천국’을 주신다.

112. 루시퍼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려는 뜻’을 반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꺾고 구약역사 6000년 이후 정녕코 행하여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시대 보낸 자’도 정녕코 행했다. 그리함으로 사탄 루시퍼의 말을 꺾어버렸다.

113. 지구 역사상 가장 통쾌한 일은 <인간>이 ‘삼위의 영원한 절대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준 일’이다. 이로 인해 사탄의 말을 꺾어 버렸다.

114. 행했으니, 하나님은 사탄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사탄들아. 보아라. 정녕코 행하지 않았느냐.” 하신다. 이에 사탄들은 다 굴복하면서 “맞습니다. 우리만 망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후회합니다. 이제 행한 대로 불바다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한다. - 정녕코 행하면, 사탄을 꺾어 버린다!

115.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욥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이 시대 사명자도 정녕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정녕코 이루지 않았느냐. 불신하고 막고 악평한 자들만 망했다.” 하신다.

116. 누구든지 ‘끝까지’ 하여 이겨야 된다. 그래야 사탄을 꺾고, 하나님이 “자~ 보아라!” 하신다.

117.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나. ‘아는 것’이다. ‘알려 줄 자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승리하고 성공할 길’이다. <가치>를 상실하지 말아라. <가치>를 모르니 ‘같이’ 못 사는 것이다.

118. 알려 줬으니 하면 된다. <휴거>를 놓고 끝까지 하면, 휴거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봐라! 정녕코 행했구나. 영원히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라.” 하신다.

119.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하나씩 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가지고 해라.

120.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할 수 있는데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시험에 들고 스스로 어려움에 빠졌다. 고로 따라오다가 부정했다. 부정하면 못 간다.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복지’를 부정해서 못 갔다.

121. 사탄에게도, 섭리사를 부정하는 자에게도 보여 주자! 그러면 “그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며 굴복한다. <휴거>까지 알려 줬으니, 이제 더 ‘완벽함’으로 보여 주고, 전도하여 ‘많은 생명’으로 보여 주고, ‘잘 사는 것’도 보여 주자. 매일 잘되게 축복해 주니, 믿고 행하여라!

122. <시대 구원자>도 가정에서부터 동네와 기성 교회와 이 시대가 주는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기어코’ 행했다. 그리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끝까지 행하는 자의 것>이다.

123. <월명동>은 하나님이 지시하여,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그리도 비웃고 부정했다. 인생들은 다 그리한다. 자기 차원대로 생각하고 보고 말한다. 다 만들어 놓으니, 반대하고 부정했던 자들이 정말 좋다고 말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특히 ‘월명동 개발’을 싫어했다. 그와 같이 다른 것들도 부정하고 나갔다. 삼위일체가 함께하시어 만들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최고로 기뻐하셨다. 만든 자들도, 쓰는 자들도 모두 기뻐한다.

124. <월명동>은 ‘실체’이듯 <휴거>도 ‘실체’다. <휴거>를 ‘망상’으로 생각하는 자는 휴거되지 않는다. <휴거>를 이루고 증거하는 허다한 증인들을 보아라!

125.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해 준 잠언은 <2016년 1월 17일>에 ‘미국 순회 주일말씀’을 보면서 쓴 잠언이다. 지금 조은이가 나와 같이 성령 모시고 미국에 가서 집회한다. 망상이냐? 실체다. 실제로 가서 지금 행한다. 주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다. 이같이 <휴거>도 ‘실체’다. <주>도 ‘실체’다. <시대 하와>도 ‘실체’다. <역사>도 ‘실체’다.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내가 진정 성령을 사랑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사랑>은 ‘생각과 행위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

2. <중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관계’를 해야 된다. <신과의 사랑의 관계>는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해 주는 것'이다. 기도하기, 찬양하기, 말씀 듣고 행하기,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기, 하나님의 각종 뜻을 행하기 등이 마치 세상에서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 관계를 하는 격이다. - 이 도를 깨닫고 행하여라.

3. <중요> 세상 남녀의 사랑 관계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첫째, 육체의 관계다. 둘째, 생활하며 사랑으로 대해 주는 관계다. 셋째, 마음과 생각으로 늘 잊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그러하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관계다. 둘째, 마음과 생각으로 잊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다. 셋째,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랑 관계다.

4. 삼위일체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처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만든 후>에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

5. 사람들에게는 땅도, 물건도, 사람도 <처음>에는 '자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사거나 서로 좋아하여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처음>에도 <나중>에도 '하나님의 것'이다. <처음>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이 크면 각종으로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값을 주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다.

6. <사람>은 서로 좋아하여 사랑하면, 서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자기 하나님, 자기 성령님, 자기 성자'로 만드는 것이다. <주>도 그러하다.

7. 매일 수시로 대화해 주시던 성령님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안 하면,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면, 바로 대답하신다. <신>은 '인간의 육체'와 다르다.

8. TV나 전자 제품은 리모컨을 누르거나 손으로 터치해야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9. <인간>은 '리모컨'과 같고, <신>은 'TV'와 같다.

10. <중요> 리모컨을 누르거나 손으로 터치해야 TV가 작동되듯이, <인간>이 먼저 '생각'을 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이야기해야 합당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반응을 보이신다.

11. <자기 혼과 영>도 그러하다. <자기 육>이 '생각'을 열고 <혼과 영>에게 '생각'을 맞추고 먼저 부르고 이야기해야 <자기 혼과 영>이 반응을 보여 통하게 된다.

12. <중요> <인간>이 먼저 '생각'을 열어 놓고 시동을 건 다음에 먼저 <성령님>을 부르면서 대화해야 즉시 성령과 연결되어 통하게 되고,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느껴지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으로 들려오고 감동이 된다.

13. <중요> 평소에 성령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마음과 생각의 채널>이 성령과 맞춰져 있지 않으면 모른다. - 고로 먼저 성령님을 찾으면서 수시로 대화해라. 그래야 <마음과 생각의 채널>이 성령님께 맞춰져 있으니, 성령님이 '급히 하실 말씀'이 있어서 감동을 주면 즉시 그 말을 알아듣고 성령님과 바로 통하게 된다.

<2016년 2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분 나쁜 것>은 조절하면 되고, <행실 나쁜 것>은 고치면 된다.

2. <기분 나쁜 문제>는 '감정'에서 발생하니 조절하면 해결되고, <행실 나쁜 문제>는 '실체'가 되니 이것은 꼭! 고쳐야 된다.

3.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상대>로 인해 '기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다. 이때는 <마음>에서 화가 난 것이니, '생각'을 조절하면 된다. 그러나 <자기 행실>로 인해 '기분 나쁜 일'이 온다면, 이것은 '자기 감정과 생각'을 조절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행하여 이루어진 문제라서 계속 보게 되니 계속 기분이 나쁘다. 고로 <행실 나쁜 것>은 고쳐야 문제가 해결된다.

4. <확인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는 확인했을 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실망’이 더 클 것이고, 확인했을 때 자기 생각과 맞으면 ‘기쁨’이 더 클 것이다.

5. 기성은 ‘확인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역사가 흘러오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안 맞으니, 그로 인한 <실망>이 ‘수소폭탄’ 터지듯 컸다.

6. 새 역사에 온 자들은 ‘확인하면서 기뻐하는 자들’이다. 고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확인한 것과 맞으니,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활화산’ 터지듯 컸다.

7. <주를 기다렸으나 무지로 인해 맞지 못하고 실망한 자들>에게 ‘대가’가 있다면, ‘그동안 희망으로 기다리며 환상에 젖어 기뻐했던 것’이다.

8. <주를 맞은 자들>에게도 대가가 있다. 첫째, ‘그동안 희망으로 주를 기다리며 기뻐하며 산 것’이다. 둘째, ‘주를 맞고 주와 같이 사는 삶의 기쁨’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대 말씀을 매일 받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이루는 대망의 기쁨과 희망’이다.

9. 하나님은 따지기 전에 아시고, 인간은 따진 후에 안다.

10. 급물살에 떠내려갈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11. 잠을 자고 있는데 물에 떠내려가면 아무것도 모른다.

12. <시간의 급물살>에 떠내려갈 때는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모른다.

13. 사람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거기에 빠지면,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14. 사람의 생각도, 눈도, 귀도 ‘한 가지’에 집중된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들어도 ‘한 가지’ 외에는 스쳐 보이고 스쳐 들리기만 한다. ‘집중해서 보고 들은 것’만 기억난다. 사람은 ‘한 가지’에 빠지면, 다른 것은 모른다.

15. 자기는 다 교육하고 가르쳐 줬는데, 듣는 자가 다 받아들이고 기억하느냐. 확인하기 전에는 모른다.

16. 자기는 생명이하며 교육했다고 하지만, 듣는 자가 자기같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다.

17. 듣는 자가 잘 들었어도 처음 들으면 곧 잊어버린다. 두 번, 세 번, 네 번 ‘적은 양’을 반복해서 잘 설명해 주고, 모순 없이 가르쳐 줘야 듣는 자도 잘 알게 된다. 또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 줘어도 행하지 않으면 어느새 잊어버린다. 고로 배운 것을 행하게 하여 얻게 해 줘야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니, 나중에는 스스로 행한다.

18. <귀로 들어 배운 자>는 ‘1차원에 오른 것’이다. <배운 것을 행한 자>는 ‘2차원에 오른 것’이다. <행하여 얻은 자>가 ‘3차원에 오른 것’이다.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자>가 ‘4차원에 오른 것’이다. 5차원에 오른 자는 누구이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인정해 주는 자>다. 이러면 ‘완전에 이른 자’가 된다.

<2016년 2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보일 것을 보여 줘야 현실을 깨닫고 시인한다.

2. <본 자>와 <안 본 자>는 증거할 때나 가르칠 때나 행할 때 보면 느낌도 감동도 차이가 있다.

3. 만사에 차원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4. 금인지 은인지 깨달아야 ‘하고자 하는 차원’을 높인다.
5. 차원을 높이려면 첫째,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둘째, <행하는 차원>을 높여라.
6.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행실의 차원>도 높아진다.
7. 기도하고 분별하여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고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다.
8. <생각>이 ‘어린아이 차원’인데, ‘어른 차원의 행실’을 하겠느냐. 못 한다.
9. <생각>이 ‘하나님’과 다른데, ‘하나님께 합당한 행실’을 할 수 있겠느냐. 못 한다.
10. <생각>에서 ‘주’를 제대로 안 믿는데, ‘주의 뜻대로’ 합당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못 한다.
11. 먼저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바로 알고, 그다음에 그 차원의 생각으로 행하면, 온전하게 차원을 높이게 된다.
12. <생각의 차원>을 ‘700선’으로 올려야 <행동의 차원>도 ‘700선’으로 올라간다. 그래야 <휴거의 차원>도 그만큼 높이게 된다.
13. 알려면, 먼저 배워서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 그러다가 그 차원을 벗어나 깨닫고 확신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 - 그리고 행하기다.
14. 주를 깨닫고 그 차원에서 행하는 자는 ‘그 차원의 것’을 알게 되고 얻게 된다.
15. 성령으로 깨달아야 제대로 인정하여, 자기 주관이나 자기 의지로 깨닫지 않는다. 고로 성령을 불러라. 간구해라. 대화해라.
16. <깨달은 자>는 ‘100의 위치’에서 ‘1000의 위치’로 벗어나 행하게 된다.
17. 하나님이 구상하여 그가 보낸 자의 욕을 쓰고 만든 <월명동 자연성전>도 겉으로 보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깊은 사연을 모르니, 감동도 은혜도 적게 받고 적게 행한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그 오묘함과 신비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제대로 알고 감탄한다. 고로 그만큼 행한다.
18. <자연성전에 대한 깊은 비밀>은 아직도 밝히지 않은 것들이 많다. 깨달으려 하는 자에게 그 생각의 차원대로 깨닫게 해 주신다. 깨닫는 만큼 감동과 은혜를 받고, 그만큼 행하고, 그만큼 얻는다.
19. 자기가 알고 깨달으려 해야 그쪽으로 생각이 열리게 된다.
20. 자기가 알고 깨달으려 하는 만큼 하나님과 성령이 역사하시어 ‘그 생각의 차원’대로 깨닫게 해 주신다.
21. 자기가 관심이 있고 신경을 써야 그쪽으로 생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역사해 주신다.
22. 고로하고자 하는 자, 관심이 있는 자, 신경을 쓰는 자, 힘쓰는 자가 더 많이 깨닫고, 삼위도 더 많이 역사해 주시고, 더 행하여 얻는다.
23. 주에 대해, 성령에 대해, 생명의 말씀에 대해, 네 영혼에 대해, 휴거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자꾸 깨달으려고 해라.

<2016년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24.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 곧 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는데도, <무지한 자>는 평생 쓰면서도 가치를 모른다. 그러니 인적 차원으로만 쓰고 귀히 쓰지 못한다.

25. <육>도 제대로 몰라서 귀하게 쓰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도 <혼>도 <영>도 제대로 몰라서 귀하게 쓰지 못하고 죽는다.

26. <육>에 대해서만 알면, 세상에서 ‘육’으로만 살다가 끝난다.

27. <혼과 영>에 대해서도 알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자기 육’을 통해 ‘자기 영’을 변화시켜 구원받고 휴거되어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

28. 깨달아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를 증거하기도 하면서 뜨겁고 확실히 알게 된다.

29. <보화가 묻혀 있는 귀한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땅>만 생각하고 ‘땅값’만 받고 팔게 된다.

30. <자기 자신의 가치>도 깨달아야 ‘남’에게 팔지 않고, ‘자기’가 개발하여 귀히 쓰게 된다.

31. 하나님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총 6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7000년째에 성약 역사를 시작하시고 <최고의 휴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데, ‘자기가 이 역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100% 모르고 살고 있다. - 그러면 역사에 참여해도 부분적으로만 하게 된다. 그러니 사탄에게도 지고, 세상 유혹에도 잘 빠지고,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잘 얻지도 못하고, 희망도 기쁨도 별로인 것이다.

32. <시대의 가치, 역사의 가치, 휴거의 가치, 자기 자신의 가치, 주의 가치>를 깨달아야 자기와도 싸워서 이기고, 세상 유혹과도 싸워서 이기고, 사탄과도 싸워서 이겨 제대로 ‘휴거’를 이룬다.

33. 세상은 ‘명예·권세·재물·외모·학벌’ 등을 보고 ‘가치’를 따진다. -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잠깐이다.

34. <영원한 가치를 지닌 휴거>는 ‘육’이 인생을 살 동안 평생 가지고 살고, ‘영’이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된다. 영원한 가치다.

35. <휴거>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게 가치 있다.

36. <육신>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게 가치 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영의 휴거’도 이룬다.

37. <육의 가치>는 ‘육’이 죽으면 끝나고, 육을 통해 변화시킨 <혼과영>만 - 만든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를 상속받아 영원히 누린다.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 영혼의 가치>는 영원하다.

38. <자기 육신>을 가지고 <자기 혼과 영>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시키고, <혼과 영>이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게 만든다. <육>이 그리 귀하다. 문제는 그 <육>을 가지고 ‘세상 사랑’으로 쓰느냐, ‘명예와 물질과 권세’로 쓰느냐, 하나님을 믿어도 ‘구시대’에서 쓰느냐, ‘새 시대에 와서 자기 영을 구원하고 휴거의 영으로 변화’시켜 영원히 살게 하느냐다.

39. <육>이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는 자는 세상 어떤 큰 자보다 큰 자다. 최고로 큰 자다.

40. <육신>은 절대 살다가 끝난다. <육신>이 끝나기 전에, 자기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켜 구원하고 휴거시키기다.

41. 나이 먹은 후에는 구원과 휴거를 이루기가 거의 어렵다. 그제야 믿고 살면서 행하기도 어렵고, 행하여 변화되기도 어렵다. 가끔 여기저기서 한 명씩 믿으러 오기는 한다.

42. 시대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들아. 가치를 뺏기지 말고 행해라. 자기가 나태하여 가치를 모르고 살다가 뺏기면, 거의 복직이 어렵다.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으나, 100대 1 정도로 돌아왔다. 기적과 같이 다시 돌아왔어도 <좋은 때>는 다 지나가고 왔으니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렵다.

43. 농사짓듯 '제때, 좋은 때에 꾸준히 하기'다. 봄에 농사를 짓다가 여름에 나갔다가 가을에 다시 돌아오면, 가을에 추수할 수가 없다. 만사의 이치가 그러하다.

44. 열심히 행하는 자들아. 휴거되어 <황금성>을 얻은 자들아. 가치를 잃고 뺏기지 않도록 해라.

45. 아직 <황금성>을 얻지 못한 자들은 열심히 하여 얻고자 하여라.

46.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최고의 역사'를 펴신다. 고로 구약 4000년 역사 때보다, 신약 2000년 역사 때보다 극적으로 귀한 때다. 깨닫고 행해라!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47. <세상에 속한 자들>은 더 기뻐하고 더 웃고 더 흥분되어 살려고 세상 예술과 이성과 각종 썩는 문화에 처해 별의 별 행위를 다 하면서 산다. '영의 것'은 생각지 않고 산다. 그러나 <육의 행위>대로 '혼과 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절대자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다. - 못 한 대로 망하고, 행한 대로 받는다.

48. 영원한 것이 아니면, 잠깐이다. 허무하게 끝난다. 영원한 것을 남기지 않았으니, '영들'이 자기가 갈 곳을 생각하면서 마치 벗은 몸에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듯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앞날>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앞날>은 곧 '영'이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자>라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했다면 알뜰하게 말하지 말아라. 다 무지의 철학이다.

49. 기쁨도 영광도 평생 가지 않는다. 한때다. 그때마다 끝난다.

50. 자기가 미치게 좋아하고 사랑하던 자와 평생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 것으로 생각하고 100년 가약을 맺고 같이 산다. 그러나 그 마음도 한때다. 그 기간이 지나간다. 그러다가 50%는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랑을 취하려고 찾는다. 또 찾았어도 역시 한때다. 사람은 참 변화무쌍하다.

51. 어떤 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산다. 그 정도로 좋아하니 산 것이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한때만 좋아하다가 다시 팔아 버린다. 집도 물건도 그러하다. 사람은 변화무쌍하여 그리도 좋아하며 만족했던 것도 마음이 뒤바뀐다.

52. <휴거>만이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영원히 희망이다. 기쁨이다. 기쁨과 만족이 변함없고, 더 차원 높여 찬란히 빛나게 한다.

53.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도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지 찾아다닌다. 찾아도 있느냐. 우주를 다 뒤져도 없다. 고로 증거해라! 가르쳐 주어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로 오게 해라! 시대 복음을 전해 주어라.

54. 휴거되어 <영>이 '황금성 천국'에 갔어도, 휴거됐으면 <육>도 '땅'에서 누린다. 그러니 허무하지 않고 확실하다. 단!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된다.

55. 세상 웃음은 ‘코미디로 웃기는 웃음’이다. 이것도 중독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웃어야 산다. 뇌가 그렇게 길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다 허무하다.

56. <영원한 휴거>를 이루고 웃는다면, 그 웃음은 인정한다. 그 웃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57. 사람들은 ‘대수롭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웃고 즐기고 만족한다.

58. 술을 먹으며 즐기고, 이성으로 즐기고, TV를 보고 웃으며 즐기며 산다. 뭐 그리 웃을 만한 것이기에 그리도 웃느냐. <영원한 것>을 해 놓고 영원히 누리니 좋아서 웃으면, 그 웃음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알아주고 인정하는 웃음이다.

59. 어떤 사람이 그리도 기뻐하며 웃기에 “뭐가 그리 좋아서 웃냐?” 하니, “웃기는 이야기 듣고 웃었다.” 했다. - 사망길 가기 바쁜 웃음이었다. 어떤 사람이 또 웃기에 “뭐가 그리 좋아서 웃고 기뻐하고 만족하냐?” 하니,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받으며 그와 같이 사니 그리도 기쁘고 즐겁다.” 했다. - 그 역시 때가 되면 사라질 웃음과 기쁨이다. 어떤 사람은 ‘명예, 물질, 권세, 자기가 좋아서 얻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만족해한다. - 그러나 그 역시 혼과 영까지 기뻐할 것이 못 된다. 영원하지 않다. 초침, 분침, 시침이 가듯이 <인생>은 결국 ‘하루해’ 가듯 지나간다. 오직 ‘육과 혼과 영’이 모두 같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웃고 얻고 살아야 그 웃음도 기쁨도 허무하지 않고 영원하다.

60. <전능자로부터 받고서 기뻐하며 웃는 것>은 크고도 크다. 육 인생 일생까지 가고, 영 영원까지 간다.

61. <별로 귀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좋아서 뛰며 만족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웃어야 참으로 좋아서 웃는 진짜 웃음이다. 허무하지 않은 진짜 인생이다.

62. <흠>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보통으로 쓰는 자도 있고, <흠>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흠>을 변화시켜 ‘청자기, 백자기’를 만들어 10억, 100억, 300억에 팔아 최고로 귀히 쓰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을 가지고 농사짓듯 ‘자기 육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도자기 만들듯 ‘자기 영’을 변화시키고 휴거시켜 사는 자도 있다. - 이 시대가 그러하다.

63. 인생은 ‘아는 만큼, 깨닫는 만큼’ 귀히 살게 된다.

64. <그토록 자기가 기다린 자>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주권관’에서 살고 있어도 ‘가치’를 모르고 산다.

65. 보아도 들어도, 모르고 보고 들으면 ‘가치’를 몰라서 기쁘지도 않고 행해지지도 않는다.

<2016년 2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중요

1.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의 영도, 주의 육도 합당할 때마다 감동을 주며 계시를 해 준다.

2. <계시>는 ‘계시해 주는 자의 말씀’이다.

3. 사람끼리는 ‘말’로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때마다 합당하게 <만물>을 보이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며 계시하시기도 하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며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알아듣게 ‘말’로 계시하시기도 한다.

4. 또한 <설교>를 통해 계시하시기도 한다. 고로 <설교>를 ‘설교’로만 듣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계시’로 들어야 된다.

5. <무지한 자>는 ‘주’가, 혹은 ‘형제’가 자기를 위해 대신 고통을 받아도 모른다. 고로 ‘주’는 깨닫도록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줬는데도 무관심하면, 하나님은 본인도 그만큼 같이 고통을 받게 하신다.

6. 가르쳐 줬는데도 모를 때는, 꺾게 하신다. 꺾으면 깨닫게 된다.

7. <뇌의 실수, 생각의 실수>인데 모르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한다. 그러다가 ‘암벽 길, 깊은 골짜기, 쓸쓸한 광야’로 홀로 가게 되면, ‘왜 이런 곳으로 가지나?’ 생각하게 된다. - 고로 가르쳐 주어 깨우친다. 깨우쳐 주면, 보다 빨리 깨닫게 된다.

8. <무지한 자>라도 두렵고 무섭게 꺾으면, 깨닫게 된다.

9. 위급할 때나, 사고 직전이나, 각종 위험이나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기 전에는 <마음>에 ‘슬쩍’ 영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그런데 그 느낌이 강하게 오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슬쩍’ 스쳐 지나가면서 조금 느껴진다. 이때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물으면서 행해야 된다.

10. 큰 사고나 문제나 위기가 올 때도, 또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마음>에 ‘슬쩍’ 영감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사람이 말하듯 확실하게 안 오고, 긴가민가하게 슬쩍 스친다.

11. 큰 사고나 문제나 위기가 와도 영감과 감동이 슬쩍 스쳐 오는데, 왜 확실하고 강하게 감동을 안 주시고 긴가민가하게 느끼게 하시는지 물었다. 성령 - 강하게 계시해 줘도 ‘받는 당사자’가 계시에 흐려서 그리 조금만 느끼는 것이다. 또 <영적인 것>이 ‘육’에게 전달되니, 육이 강하게 못 느끼고 못 받는 것이다. 고로 계시를 강하게 받으려면, 마음과 생각이 신령하도록 늘 기도해라. 또 해당되는 것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라.

12. <계시>를 의식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강하게 감동을 주고 영감을 줘도 조금밖에 못 느낀다.

13. <외국어>도 배우면 잘 들린다. <계시>도 그러하다. 고로 계시를 확실하게 받으려면 신령하게 기도도 하고, 계시에 대해 배워라. 성령과 주와 늘 교통하고 대화하며 계시에 대해 배워야 감동도 영감도 계시도 강하게 받게 된다.

14. 성령이 본인의 몸을 쓰고 행하며 본인에게 계시하시기도 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계시를 한다고 내용은 이야기 안 한다. 슬쩍 느끼게 해도 절대 깨닫고 즉시 물어보면서 행해라. 정신을 집중할수록 강하게 받는다.

15. <운명이 좌우되는 것>까지도 슬쩍 스쳐 지나가니, 슬쩍 스쳤어도 즉시 기도하고 성령과 주께 물어보고 감동받고 행해라. 고로 기도하라는 것이다.

16. 안개 속에 슬쩍 보여도 실체다. 글씨가 흐리게 보여도 그 글자가 맞다. 말을 흐리게 하고 작게 해도 크게 한 말과 말은 같다. 볼펜 끝만 보여도 볼펜이 맞다. 사람 손끝만 보여도 사람이 맞다. <계시>도 슬쩍 조금만 보이고 스쳐도 맞으니, 즉시 기도하여 성령께 묻고 행해라.

17. <자기가 찾던 자>가 ‘눈’에 슬쩍 스쳐 지나가도 즉시 쫓아가 보듯이, <계시와 감동과 영감>이 ‘마음’에 슬쩍 스쳐 지나가도 즉시 기도하여 성령께 묻고 행하여라.

18. <눈>에 슬쩍 스쳐 보인 것과 <마음>에 슬쩍 스쳐 지나간 것은 같다. <감동과 영감>이 슬쩍 스쳤어도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니, 성령의 음성과 감동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행하여라.

19. <생각에 슬쩍 스친 것>이 지나고 보면 ‘답’이었다.

20.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해당되는 것인데도 사람이 말하듯이 ‘말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 슬쩍 생각이 스치고, 슬쩍 기억이 스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은밀히 보이시고 은밀히 역사하신다. 은밀히 말씀하시고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애인끼리 일체 되어 있으면 눈치만 해도 알고, 따라서 행한다. 일체 돼야 은밀히 보이고 은밀히 말씀하셔도 깨닫는다.

22. 게시해 줬는데,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23. 게시를 잘 풀고 이해를 잘해야 된다.

24. 미국 순회 전후로도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미국에 ‘많은 만물 게시’를 주셨다. 섭리사와 선생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기막힌 게시였다. (이것은 2월 14일 주일에 말해 준다.)

25. <문제를 일으킬 자>도, <도울 자>도 ‘슬쩍’ 스치고 지나간다. - “저 사람을 만나 주어라.”, 혹은 “관리해 주어라.” 함이다.

26. 기도를 깊이 하여 ‘마음과 생각이 깨어 있는 자’는 <영감·육감·직감>이 보다 강하게 스친다. 또 <만물>을 통해 강하게 깨닫는다.

27. 전도할 때도 <감동과 느낌>이 ‘슬쩍’ 스쳐 간다. 성령으로 감동된다.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느리게 반응하거나, 이유를 달고 자기 추측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즉시 산토끼 잡으려고 쫓듯, 즉시 “아멘!” 하고 그 생명에게 가야 된다.

28. 사람에게에는 저마다 ‘생각·직감’이 있고 ‘혼’이 있다. <생각>은 ‘전파’와 같다. 어떤 것을 놓고 생각하면, 그 물체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스쳐 온다. 혹은 <자기 혼>이 가서 꿰뚫어 보고 와서 ‘자기 뇌’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알게 되기도 한다.

29. 자기 생각과 정신, 혼과 영을 발달시키면 <게시>도 잘 받고, <감동>도 잘 받고, <생각>도 잘한다. 마치 수영을 배우면 수영을 하게 되듯, 외국어를 배우면 들리고 말하게 되듯 한다.

30. 정신세계와 혼의 세계를 발달시킨 자는 성령이 감동을 줘도 빨리 깨닫고, 더 감동받고 강하게 느낀다.

31. <성령>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의식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교통을 더 잘할 수 있다.

32. 전능하신 삼위일체라도 ‘잘해 줘야’ 더 잘 통하게 된다.

<2016년 4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싸움>은 첫째 ‘자기와 싸우는 것’이고, 둘째 ‘사탄과 싸우는 것’이고, 셋째 ‘세상과 싸우는 것’이다.

2.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자 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일체 되어 성령으로 행하면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3. 성자 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일체 되어 성령으로 행하면, ‘사탄 주관권’을 떠나니 ‘사탄의 주관’을 안 받는다.

4.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과 싸우고 겨루는 사건이 많이 닥치는 원인>은 ‘구원과 휴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5. <사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힐문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난 자’다. 고로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편’이 아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탄의 것’이 되고, 그때부터 사탄은 힐

문하고 손을 대기 시작한다.

6. 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는 자>를 사탄이 막거나 방해하면, ‘전능자 삼위일체’도, ‘천군들’도 같이 싸워 사탄을 물리쳐 주신다. ‘싸울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 주관권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 편’이다. 그런데 사탄이 그 주관권을 넘어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니, 그것이 ‘싸울 조건’이 되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천군들도 같이 싸워 주는 것이다.

7. 사탄은 짐승 같아서 ‘말씀의 무기’로 강력히 대항하면 도망간다. 짐승을 보아라. 짐승은 지능이 낮아서 놔두면 덤벼들지만, 무기로 강력히 대항하면 두려워서 도망친다. 사탄도, 악한 자들도 그러하다.

8. 그러나 사탄은 지능이 낮아서 멍청하니, 도망갔다가도 곧 잊어버리고 또! 온다. 그러면 또! 사탄에게 대항해라. 또 대항하면 또 도망친다.

9. 자기 욕성도, 타인의 유혹도 그러하다. 강력히 대항하면 도망친다. 그러다 곧 또 온다. 그때 또 강력히 대항하면 또 도망친다.

10. 사탄도, 악한 자들도, 자기 욕성도, 타인의 유혹도 강력히 대항하여 꺾고 이겨라! 가만히 있으면 너 잡으러 오고, 강력히 대항하면 무서워서 도망친다.

11. <자기 생각>과 <자기 모순>으로 ‘죄’를 짓게 된다.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모순>으로 인해 ‘자기’가 ‘자기의 적’이 되어 싸우게 되는 것이다.

12. <자기중심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적 진리의 말씀’으로 꺾고 다스리기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복음>은 받되, ‘자기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이다.

14. <자기>가 다스리고 승리하면 ‘사탄’도 다 이기고 ‘유혹’도 다 이긴다.

15. <자기>를 주관하고 다스려야 ‘사탄’도 ‘만물’도 ‘사람’도 주관하고 다스린다.

16.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라. 그래야 모든 면에서 승리한다.

17. 수영을 배웠으면 자기가 수영하면서 다니는 것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자기>가 ‘주의 몸’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18. <글씨>도 잘 쓰면 잘 써지듯, <생활>도 잘해야 잘되는 것이다.

19. 행하는 대로 되어진다.

20. <불의>는 ‘선’을 넘지 말고, <의의 생각과 행위>는 지금보다 ‘한계선’을 넘어서 해라. 그래야 더 변화되고 더 차원이 올라간다.

<2016년 4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특별히 할 말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사람을 통해, 혹은 만물을 통해, 혹은 직접 말씀하신다.

2.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말씀을 들어 보려면, 자기가 ‘먼저’ 간절히 이야기해야 된다. 자기 사연을 정말 간절하게, 합당하게, 온전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된다.

3.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옆에 계셔도 그냥은 안 통하고, 인간이 먼저 말을 해야 통한다. 무엇을 볼 때도 ‘눈’으로 보고 자 하는 것을 먼저 쳐다봐야 보이듯, 삼위일체와 대화할 때도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고 삼위일체를 불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즉시 대답하든지, 혹은 조금 후에 대답하든지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시면, 첫째 ‘마음과 생각’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신다. 혹은 ‘만물’을 통해 보여 주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대답하신다. 혹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혹은 ‘설교’나 ‘잠언’을 통해 해당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4. 삼위일체를 불러라. 부르며 계속 교통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교통의 길’이 뚫려서 매일 매시간 삼위일체를 부르면서 교통하고 대화하게 된다.
5. 첫 단계에는 ‘자기 의지 차원’으로 대화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혼 차원’으로 대화하게 된다. 그 단계를 넘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대화하면, 삼위와 연결되어 대화가 된다.
6.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통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7. 세상의 왕이나 어떤 주권자와도 통하기 힘들다. 전능하신 절대 신과 통하는 것이니 무작정 쉽다고 생각하지만 말고, ‘전능자와의 대화의 가치’를 알고 해야 된다. - 고로 먼저는 ‘보낸 자’와 통하고, ‘보낸 자’를 통해 배우고 행해라.
8. 열심히 해도 곤고할 때가 있다. - 주와 일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삼위일체는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늘 ‘그’로 말미암아 역사를 펴신다. 고로 ‘그’와 일체 돼야 곤고하지 않게 기쁨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주의 일도 한다.
10. 새벽 정한 시간에 약속대로 삼위일체와 대화하고 기도하며 행해라. 그러면 삼위일체도 약속대로 주시고, 역사하시고, 행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며 도우신다.
11. 꿈을 풀 때는 ‘생시에 자기가 행하는 일’과 연결시켜 풀어라.
12. 꿈에 파리가 죽든지, 파리를 죽이는 꿈을 꾼도 ‘생시에 어떤 것을 청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꿈에 ‘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을 보여 주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청산된다.’ 함이다.
14. 꿈에 공격받는 것은 ‘생시에도 그와 같이 공격받는다’는 꿈이다. 공격받지 않으려면 행하라는 계시다.
15. <꿈>에서 얻으면, <생시>에도 얻는다.
16. <생시>에 겪어 보면 별것도 아닌데, <꿈>은 엄청나게 허황되게 펼쳐서 꿈을 꾸고 나서 초긴장하게 된다. 고로 꽤 씹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 이것은 두려워하도록 사탄이 주는 꿈이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행해라.
17. 꿈은 한 가지만 안 꾴지고 여러 가지가 꾴진다. 그중의 <최고 핵 꿈>은 ‘마지막 꿈’이다. <깨기 직전에 꾸는 꿈>이 특히 ‘계시’의 꿈인 경우가 많다.
18. 생시에서 걱정·염려·번민을 지나치게 하면 그 생각들이 <꿈>으로 이어져 꾴지는데, 사탄과 귀신들이 활동하는 꿈을 꾸게 된다.
19. 꿈을 잘 꾸려면, 낮에 ‘자기 생각과 행실’을 온전하게 해라.
20. 꿈에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엿보거나 괴롭히거나 말썽을 부리는 자가 있다. 그는 ‘사탄을 상징한 자’다.

21. 꿈에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다니는 자가 있다. 그는 '사탄을 상징한 방해자'다. 사랑하는 대상은 '삼위'다. '주'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다. <삼위와 주와의 일대일 만남>을 위해 더 깊이 기도해라. <자기가 원하던 것>이 생시에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하며 행해라.

<2016년 4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시장에서 <두 가지 물건>을 놓고 '더 좋다고 생각한 물건'을 골라서 사 왔다. 그런데 쓰다 보니, '다른 것'만 못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느냐. 하찮은 물건도 그러한데, 세상에서 <두 가지 삶>을 놓고 '더 좋다고 생각한 삶'을 골라서 살았는데 살아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면 속만 상하겠느냐. 평생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한다.

2.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놓고 '현실'에서 보면, 당장은 '지옥으로 가는 삶'이 훨씬 편하고 좋다. 육적으로 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마음대로 육적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자기 좋은 대로 육적인 삶을 사니 그리도 편하고 좋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먹고 즐기며 쾌락을 누리고 육적 사랑의 향락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기 육적 사상과 정신'을 뒤바꾸고 '세상 쾌락과 향락'을 참아야 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되기도 한다. 우선 '현실'에서 볼 때는 <육적으로 먹고 즐기며 육적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삶>이 좋으니, 그쪽 삶을 선택하여 살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영의 세계>에 처해 보면,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삶이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고통이었다. 그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느냐. 그러나 결국 그 삶이 육적으로 살기 좋으니, 자기가 선택하여 산 것이다.

3.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산 자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법'을 지키느라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옥의 고통을 겪기도 했다. 또한 환난, 고통, 핍박, 이성, 육적 사랑, 세상 향락, 먹고 즐기는 세상 문화 등 수백 가지를 참고 사느라 고통받고 힘들었다. 그 대신 세상에서도 <신앙 세계> 안에서는 '천국 같은 삶'을 살았고, <영의 세계>에서도 '천국'을 얻어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된다. 그 기쁨과 축복과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된 자들의 영들>은 천국에서 최고의 세계인 '황금성'에서 살게 된다. 이들은 세상에서 '더 높은 조건의 말씀'을 지키고 그로 인해 '더 많은 고통'도 당하면서 산 자들로서 결국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뜻과 목적을 이룬 자들'이다.

4. <최고 높은 조건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보지도 않고 '천국 황금성'에 간다면, 삼위일체가 보기에 '이 좋은 세계를 헐값에 오다니... 정말 억울하다.' 하신다. 고로 그 영들에게는 '천국 황금성'을 절대 주지 않으신다. <천국 황금성>은 '천국의 최고 세계'다. 세상에서 힘들어도 '최고 높은 조건의 말씀을 지킨 자들'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행한 자들'의 영들에게만 허락된 세계다.

5.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6. 진행해서 먹고 마시고 행해도 <생각>이 모르면 맛도, 멋도, 권세도, 사랑도 모르고 하게 된다.

7. <알고 하는 자>는 '신'이고, <모르고 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며 '짐승' 같기도 하다.

8.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르면, 짐승과 같은 차원이다.

9. <알 것>을 모르고 살면, '짐승'과 같다.

10. <아는 자>는 행하며 다스린다.

11.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도 문제지만, 얼마나 귀하게 쓰느냐가 더 문제다.

12. <돈 벌기>는 어렵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쓰기>는 더 어렵고 귀한 일이다.

13.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있어야 ‘돈’도 벌고 ‘성공’도 한다. <시간>이 있어야 ‘벌어 놓은 돈’도 쓰고 ‘명예’도 누린다.

14. <시간 벌기>, 그리고 <시간 귀히 쓰기>다.

15.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백지장 차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역사가 시작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시>는 ‘느낌’으로 스치게 하며 주신다. 고로 <계시>를 주셔도 자기 마음에서 깨달은 것같이 느껴진다.

17. 삼위일체가 계시하셔도 ‘음성’이 들리며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다. 거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낌을 받게 하시며 ‘마음’에 주신다.

18. <운명>이 좌우되고 <생명>이 좌우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생각’을 통해 “꼭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계시가 온다.

19. 자기가 순리를 벗어나서 행할 때는 - 자기 스스로 현실을 보게 하시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깨달음이 온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계시다.

<2016년 4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령) <기술>보다 <정성>을 본다.

2. (성령) <몸의 질>보다 <마음의 질>이다.

3. (성령) <마음>이 좋아서 ‘금덩이’ 같은 자라도 변질되어 ‘은’이 되면, 그때는 ‘다른 존재’가 된 것이다.

4. (성령) <좋은 마음>을 가진 자라도 ‘마음의 향아리’가 깨지면, ‘딴 인생’이 되는 것이다.

5. (성령)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랑하며 산 자라도 ‘마음의 그릇, 마음의 향아리’가 깨지면, 그때는 ‘딴 사람’이 된다.

6. (성령) <자기 마음>을 깨뜨리면, 그때는 누구나 ‘다른 운명’으로 기운다.

7. 사울 왕도 마음이 변하니 ‘딴 사람’이 됐다.

8. 집도 그러하다. 아무리 ‘궁’같이 지었어도 무너지면 ‘여우 굴’이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9. 섭리사에 있을 때 한때 잘하던 자들도 신앙이 무너져서 ‘여우 굴’이 된 것이다. 쓰러진 집을 다시 일으키듯 하면, 다시 ‘귀한 주의 집’이 되고, ‘삼위일체가 거할 전’이 된다.

10. (성령) 자기를 무너지지 않게 해라.

11. (성령) 자기 마음이 무너졌으면, 다시 일으켜라.

12. 천하에 꿈을 받는 자라도 지진 나서 무너지듯 하면, 하루 사이에 ‘딴 인생’이 된다.

13.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다.

14. <과거>로 인해 <현재>도 제대로 살아 존재할 때, ‘과거’도 인정해 준다.
15. <현재> 무너졌으면, <과거>도 무너진 것이 된다.
16. <과거>에 주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러나 <현재>는 주를 등졌느냐. 그러면 ‘과거’도 무너진 것이다.
17. <과거>에 주를 사랑하며 살았느냐. <현재>도 그와 같이 사느냐. 그러면 ‘과거’도 인정한다.
18. <현재> 산 자냐, 죽은 자냐 -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이다. 이것을 가지고 <과거>도 <미래>도 평가한다.
19. <과거>에 ‘왕’을 살아 먹었어도 <현재>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 ‘종 취급’ 하는 것이다.
20. (성령) <마음>이 깨지면 <육신>도 깨진다. 그로 인해 <뜻>이 깨지고, <영혼>도 깨진다.
21. <사람>은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생각>이 깨지면 <삶>이 깨진다.
22. <생각>이 강 건너에 가 있으면 <몸>이 강 이편에 있어도 ‘강 건너의 삶’을 사는 것이다.
23. <마음과 생각이 떠난 자>는 ‘죽은 시체’다.
24. <마음> 먼저 떠나고, <몸>은 후에 떠난다.
25. 미련한 자는 주의 품을 떠나, 영원히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서 산다.
26. 주를 등지고 배신하여 ‘주를 외롭게 한 죄’가 그리도 크다.
27.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여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인간>은 지능이 높아서 짐승보다 다스리기 힘들다.
28. 다스리기 힘들다고 ‘한 차원 낮게 짐승 수준’으로 창조했으면, 다루기는 쉬운데 미련해서 그 <육>도 사랑하며 살 수가 없고, 그 <영>도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없다.
29. 하나님과 주의 말을 안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자는 나가고, 안 믿는 자는 안 믿어도 그들은 세상에서 ‘육’으로 끝나고 ‘영’은 영원토록 고생하고 고통받게 놔두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한 자들>만 구원하고 휴거시켜 ‘육’도 ‘영’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사랑의 대상체’로서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2016년 4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그림을 다 그리고 ‘핵’을 못 그리면 ‘전체 그림’이 빛이 안 난다.
2. 일할 때도 ‘핵’을 먼저 해라.
3. <핵의 일>을 안 하면 일의 반응도 없고, 기쁘지 않고, 느낌도 없고, 흥겹지도 않다. 일한 표도 안 난다.
4. <핵>을 못 하면, 마치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만 보고 온 격이다.
5. <핵>을 잡아라. 그러면 다 잡는다.
6. <핵>은 <핵>으로 대하며 다스려라.

7. <영>이 '핵'이다. 결국 '육'을 통해 '영'을 살리기도.
8. <핵>을 '먼저 확인하기'다.
9. <인간의 핵>은 '생각'이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생각'으로 대하여라. 성령님이 자기 손을 잡아 주셔도 '육'은 못 느낀다. 손에 상처가 날 정도로 비비며 만져 줘도 '육'은 못 느낀다. 그러나 '생각'하면, 즉시!! 느낀다.
10. <인간의 핵>은 '영'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도 '영'이다. <핵>은 '핵'으로 대하기다. <영>은 '영'으로 대하기다.
11. 인간의 <마음, 생각, 심정>이 핵이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마음, 생각, 심정'으로 대하기다. 이것을 빼고 대하면, 사랑도 역사도 기쁨도 못 느낀다.
12. <핵> 빠지면 '생명 형성'이 안 된다.
13. <시대 구원자>는 '핵'이다. <시대 말씀>이 '핵'이다. 이 핵이 빠지면 '생명 역사, 구원 역사, 변화 역사, 거듭남의 역사, 휴거 역사'가 안 일어난다.
14. <생각을 행하기>가 '핵'이다.
15. 많은 것 중에서 <먼저 할 것>이 '핵'이다.
16. <핵>은 작다. 그러나 '세력과 능력과 권세'는 전체보다 강하다.
17. <핵>은 '기도'다.
18. <핵>은 '감사'다.
19. <핵>은 '진실한 사랑'이다.
20. <핵>을 차지한 자가 <전체>를 차지한다. <월명동 초가집 집터 핵>을 차지하니, <월명동 전체>를 차지했다. 이와 같이 <구원자 핵>을 차지하면, <천국>을 차지한다.
21. <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종교의 핵'이다. 이 핵에서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행하신다.
22. <핵>을 모르면 '구경꾼'이다. 그러니 '핵을 위한 배경 노릇'만 하고 온다.
23. <핵과 대상>이다. <핵과 대상>은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
24. <핵>을 뺏기면 <대상>도 기운다.
25. 사탄은 <핵>을 노린다.
26. 악한 자는 <핵>을 뺏으러 온다.
27. 동물도 먹이를 잡을 때 <핵>을 물어서 잡는다. <핵>인 '목'을 이빨로 강하게 물고 숨통을 끊으니, 헉헉거리며 죽어간다.
28. 행해라. 자를 것을 잘라라. 버릴 것을 버려라. 행하면 '공격자'다.

29.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자는 ‘자기가 죄를 허락하여 같이 행한 자’다.

30. <순간 쾌락>으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사탄과 악인들과 함께 이를 갈며 또다시 공적을 쌓고 올라와야 하는 외로운 길을 가게 된다.

31. 네 앞에 ‘뱀’이 있다 하자. 그런데 네게 ‘칼’이 있다 하자. 그러면 ‘그 무기’를 생각해 보고 쓰지 말고, 바로 써라! 뱀이 네 앞에서 너를 해치려 하고 있고, 너는 칼이 있는데 왜 안 휘두르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뱀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 등지를 틀면 안 나온다. 그때는 너 스스로는 못 뺀다. 어서 네 칼로 뱀의 눈을 찌르고 목을 잘라라!

32. 사탄도, 악한 자들도, 악평자들도, 육성도, 불의도 <처음>에 이기려고 마음먹으면 이기기 아주 쉽다. 이것들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 등지를 틀려고 하는 ‘뱀’이다. 너에게는 ‘총, 검’이 있다. 곧 ‘너의 강한 정신과 생각’이다. 곧 ‘삼위와 주가 준 강한 정신과 생각’이다. 그 ‘무기’를 사용하여 어서 ‘뱀’을 물리쳐라.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한 사람’을 못 따라간다.

2. 많은 물건과 작품이 있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한 가지’를 못 따라간다.

3.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한 사람을 못 따라간다.” 말씀하시며, ‘중심자’와 ‘중심 민족’을 귀히 대하셨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이 어리고 사연이 어린 작품>이나 <사람>이 그리 크고 귀하다.

5.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해야 ‘뜻’을 두게 된다.

6.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옷이 벗겨지고 형클어지는 것을 보고 “살 보인다. 단정하지 않다.” 지적하지 말아라. <환난 때>는 ‘환난’으로 인해 옷이 벗겨지고, 보따리가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형클어져 단정함이 없어지니 미쳤다고 보게 된다.

7. 어떤 예쁜 여자가 머리카락이 심하게 형클어진 채로 소리 지르며 가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저 여자 미쳤다.” 아우하며 소문내고 지나간다. 사람들이 “미친 여자가 봄바람에 뛰어다닌다.” 하는 말을 듣고 가 보니, 그 말대로 웬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지나갔다. 구경꾼들이 “정말 미쳤다!” 하니, 그 여자는 “내가 왜 미쳤어? 내가 미쳤다.” 하고 지나갔다. 그것을 보고 “저 여자 정말 미친 거 맞네.” 했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니, 그 여자는 바람과 태풍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형클어지니 속상해서 소리 지르며 자기 집으로 뛰어간 것이다. 옷에도 흙탕물이 사방에 튀어 있어서 꼭 미친 사람 같았다. 이 사정을 아는 사람만 그 여자를 위로해 주고, 같이 대화하면서 끝까지 따라갔다. 끝까지 따라가 보니, 그 여자는 ‘궁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들어오라고 해서 가 보니 ‘공주’였다. 이 시대가 무지하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그리 대했다. 자기 행위대로 ‘미친 자’로 보고 대했다. 알고 따른 자들만 ‘그’를 알고 대했다.

8. 알고 깨닫고 같이 궁에 들어간 자는 그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긴다.

9. 누구나 <환난 때>는 ‘환난’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자는 제대로 못 보고 “미쳤다. 이상하다.” 한다.

10. <환난 때>는 ‘왕들’도 보따리를 짊어지고 성문을 빠져나와서 개울로, 시궁창으로 기어갔고, 더러운 물로 들어가 수영하여 달아났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일단 피하고 봤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누가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도둑이다!!” 하며 때리고 “이놈아! 너 뭐 훔쳤어?” 한다. 그렇다고 “나 왕이다!” 하겠느냐? 왕이 아무리 좋게 말하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며 “제발 한 번만 눈감아 줘요.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해도, 모르는 자는 왕을 <도둑>이라

고 소문을 내며 잡아넣으려 한다. 그러니 왕은 맞으면서 일단 빠져나가고 본다. 이 시대가 ‘시대 보낸 자’를 그리 대했다. 왕이 이렇게 저렇게 하여 살아남아서 다시 전쟁을 하여 이겼다. 다시 자기 궁을 차지하고 옛 이야기를 하니 “역시 왕 차원의 행위요, 지혜였습니다.” 했다. 섭리세계가 이러했다.

11.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희생하여 결국 살리고, <미련한 자>는 자기를 나타내고 영광 받으려다가 원수의 손에 끌려다니면서 갖은 고통을 받는다.

12. <미련한 자>는 무작정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감동시키고 잘 가르쳐서 스스로 하게 한다.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한다면 ‘사랑의 관계’를 해라.

2. <삼위와 주와의 사랑의 관계>는 ‘육적 관계’가 아니다. 곧 ‘삼위와 주가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다. 삼위와 주 말씀대로 살기, 기도하기, 대화하며 교통하기, 찬양하기, 영광 돌리기, 말씀대로 행하기, 변화되어 휴거되기, 삼위와 주 뜻대로 살면서 삼위와 주를 모시고 살기. 이것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격’이다. 이것을 꼭 깨닫고 행해야 된다.

3.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생활 속에서 늘 삼위와 주를 잊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삼위와 주를 빼놓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영적 사랑의 관계’다. 이것이 곧 ‘생활 속 사랑의 관계’다.

4. <육적 사랑의 관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생활 속 사랑의 관계>다.

5. 생활 속에서 <삼위와 주와의 영적 사랑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야 ‘가장 크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로 생활 속에서 ‘삼위와 주’를 잊지 않고 사랑하며, 어떤 일을 하든지 ‘삼위와 주’를 빼놓지 않고 같이 행하며 살아라.

7.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행하는 것>이다.

8. <육적 사랑의 관계>는 ‘순간’하고 끝나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의 사랑 관계>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연속적’으로 행해야 되니 아주 어렵다.

9. <삼위와 주를 향한 생활의 사랑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두고, 매순간 ‘자기 변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니, 더 어렵다.

10. <생활의 사랑을 하는 자>가 ‘휴거된 자’이며, 정말 ‘휴거의 삶’을 사는 자이며, 계속해서 ‘휴거의 차원’을 높여 가는 자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순간 대화, 순간 관심, 순간 생각, 순간 사랑’은 쉽다. ‘생활 속에서 매순간 사랑, 매순간 생각, 범사에 대화’가 어렵다.

12. <사랑>은 지구가 쉬지 않고 돌듯이 ‘연속’돼야 한다. 이것이 ‘진짜 사랑, 위대한 사랑’이다.

13. <순간>은 누구나 잘한다. <지속적>으로 잘하기가 어렵다.

14. <생활의 사랑>도 ‘순간’은 쉬워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생활 속에서 삼위와 주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관심 갖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위대한 사랑’을 하는 자다.

15. <나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크듯, <열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크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쉬지 않고 사랑해라.

16. <휴거된 자들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으로서, 매일 ‘육’과 함께 ‘영’이 ‘생활의 사랑’을 한다.

17. 난자와 정자도 결합되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크다. 그리함으로 ‘생명체’가 된다. - 이와 같이 삼위와 주와 생각도 행동도 사랑도 일체 되어, 매일 크고 변화되어라.

18. 변질되면 정상에서 이탈했기에, 더 이상 변화가 없다.

19. 매일 어떤 일을 하든지 <삼위와 주를 빼놓지 않고 함께 하며 사는 자>가 ‘생활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하는 자’다. 이런 자가 매일 신앙이 크고 차원 높여 변화된다.

20.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커야 사랑할 수 있듯이, 신앙도 크고 차원 높여 변화돼야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마음껏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뜻을 이룬다.

21.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날이 좋으나 항상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해라!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빼지 말고, 절대 같이 행해라. 빼지 말고 항상 끼워 넣고 같이 행해라! 내가 빼면, 하늘도 너를 뺀다.

23.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껴 주기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껴 주기다. 생활 속에서 항상 사랑이다. 대화다. 이야기다. 교통이다.

24. <최고 높은 사랑의 차원>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생각도 몸도 한 덩이가 되어 같이 행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의 사랑 관계’이며,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2016년 4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행했느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삶’도 ‘혼’도 변화되고 ‘영’까지 변화되어 ‘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2. 어떤 일을 하든지,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게 느껴지고,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하게 느껴진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행하는지 보시고, 그 ‘생각’을 보고 대하신다.

4. <자기를 위한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위한 생각>도 함께 하느냐. - 이것을 늘 보신다.

5. <자기 것>만 생각하고 하느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것>도 생각하고 하느냐. - 항상 이것을 보신다.

6. <삼위와 주의 것>을 생각하고 <삼위와 주>를 위해 행하면, 삼위도 주도 행할 때 ‘그 사람의 것’도 같이 넣어서 해주신다.

7. <살>이 <뼈>를 위해서 해 주면, <뼈>도 <살>을 위해서 ‘기동’이 되어 굳건하게 해 준다. 우리는 <살>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뼈>가 되어 서로 생각해 주고 서로를 위해서 해 줘야 된다.

8. <하늘 신부>로 부활되고 변화되고 휴거됐느냐. 그리함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었느냐. 정말 <참신부>라면, 늘 ‘사랑하는 자의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사는 삶’을 살면서 ‘생활의 사랑’을 하며 산다.

9. <형제>와 <신부>는 ‘급’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

10. 네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너 혼자 먹겠느냐. 아무리 먹을 것이 적어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먹지 않겠느냐.

11. 네가 정말로 삼위와 주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네 것’만 하지 않고 ‘삼위와 주의 것’도 같이 할 것이다.

12. 네가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이 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옷 입고 기도해야지! 이 옷 입고 전도하고 강의해야지!” 하면, 그것이 ‘삼위와 주의 것을 넣어 준 것’이 된다.

13. 항상 무엇을 하든지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삼위와 주의 것을 넣어 주기’다. - 이것이 <생활의 사랑 관계>다. <휴거의 삶>이다.

14. <하늘 신부>라고 간판만 크게 걸어 놓고 입만 벌리고 살지 말아라. <하늘 신부>는 ‘삼위와 주와 영원히 살 자들’이니, 매일 ‘진실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라.

15.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가 그리 크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자기 것 + 삼위와 주의 것’을 꼭 넣어서 해 주기다.

16. 자기가 해 줄 것이 없어서 ‘작은 것’을 줘도 <마음과 생각>을 ‘산’같이 크게 하고 주면, 그것이 ‘큰 것’을 준 격이다.

17. <사랑의 한 몸>이라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의 것’도 넣고서 한다.

18. <휴거된 자들>은 ‘복직된 자들’이다. 고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살과 뼈가 일체 되듯 항상 ‘자기 것’만 하지 말고 ‘삼위와 주의 것’을 넣어 같이 행한다.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핵>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펼 수 없다.

2. <핵>은 ‘사랑의 지체’다. ‘뇌’다.

3. <사랑의 지체>만으로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이 적다. 또 ‘많은 일’을 할 수도 없다.

4. <뇌>는 ‘생명의 근원’이지만, <뇌>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5. 핵인 사랑의 지체와 뇌의 확대체는 <몸>이다. ‘확대한 몸’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백 가지, 만 가지 일을 하며 얻고 누린다.

6. 핵을 확대한 <몸>을 가지고 행하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자기 목적’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도 펴는 것이다.

7. 자연성전도 <사랑의 지체>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 <뇌>로 생각만 해서 개발한 것도 아니다. <확대시킨 몸>으로 행하여 개발했다.

8.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뜻도 <확대시킨 몸>을 가지고 행하여 이루는 것이다.

9. 휴거도 <핵인 사랑의 지체>로 이룬 것이 아니고, <핵인 뇌>로 생각만 해서 이룬 것도 아니다. <확대시킨 몸>을 가지고 행하여 이루었다.

10. <사랑의 지체>를 가지고 육적 사랑을 하면, 그쪽으로 흥분되고 기쁜 것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뇌>로 생각하면서 <확대한 몸>을 가지고 행하면, ‘수만 가지’를 행하면서 기뻐하게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주를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사는 것도 <핵을 확대시킨 몸>으로 한다. - 이것이 ‘생활의 사랑 관계’다.

12. 섭리역사도 <핵심자>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편다. <전체 몸 같은 자들>이 모두 움직이며 ‘뜻’을 펴 나간다.

13. 매일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구원하고, 강의하고, 관리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각종 개성의 사명을 하면서 ‘생활의 사랑 관계’를 하며 사는 것이다.

14. 아주 작은 <사랑의 지체>에 생각이 쏠려서 ‘육적 사랑’만 생각하며 사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다.

15. <뇌>로 ‘생각’만 하면서 사는 자는 ‘관념적인 인생’이다.

16. <확대시킨 몸>을 가지고 생활하고, 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모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라. - 이것이 ‘삼위와 주와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사는 삶’이다.

17. <사랑의 관계, 생활의 사랑>에 대해 깨닫고 알고 행하며 사는 자는 육도 영도 ‘천국 황금성의 삶’을 누리며 산다.

18. <하체 사랑>은 ‘최고 하(下)급’이다. 기쁨도 짧고, 뜻도 적다.

19. <상체 사랑>은 삼위와 주와 ‘생활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과 주가 주신 ‘사명의 일’을 하면서 수백 가지로 느끼고 얻고 누린다.

20. 인생들이 삼위의 뜻대로 살면서 모시고 섬기며 사는 ‘사랑의 삶’을 살면 삼위도 받기만 하지 않으신다. 귀히 대해 주시고 섬기고 사랑해 주신다.

<2016년 4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21. <육체 사랑>은 ‘인간’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뇌와 몸’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곧 <인간의 뇌>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시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행하며 ‘뜻’을 이루게 하신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사는 삶>이 ‘삼위와 결혼해서 사는 사랑의 삶’이다.

23.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고 살면, 꿈에 ‘누구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는 “육으로 사랑해라.” 하는 계시가 아니다. 육신이 낮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삼위와 주를 사랑함으로 행했으니, “그런 삶이 곧 사랑하는 시간과 같다.” 하고 계시해 준 것이다.

24. <확대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며 모시고 살고, 말씀 따라 행하고, 전도하고, 강의하고, 증거하고, 각자 개성대로 맡은 일을 극적으로 행하며 사는 삶이 - 곧 ‘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활의 사랑의 관계’다. 진정 깨달아라.

25. <하체>로 사랑하며 사는 자는 ‘하(下)급 인생, 하수도 인생’이다.
26. <뇌>에 삼위의 생각과 주의 정신을 넣고 <확대시킨 몸>을 가지고 행하며 <상체>로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사는 자는 ‘상(上)급 인생, 상수도 인생’이다. 상수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듯 ‘핵을 크게 쥐고 사는 인생’이다.
27. <상(上)차원>과 <하(下)차원>은 ‘극과 극’이다. <하(下)차원에서 노는 자의 삶>은 하수도를 기어 다니고, <상(上)차원에서 행하는 자의 삶>은 절벽 코스를 날아다닌다.
28. 모두 <확대시킨 몸으로 사는 상(上)차원>으로 완전히 나와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찬란한 세계>로 완전히 나와라. 그곳이 바로 <전능자를 대면하는 사랑의 대상체, 신부 세계>다.
29. <땅>에서는 <확대한 육체, 몸>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삼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의 관계’다.
30. <천국>에서는 <확대한 영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삼위의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랑의 관계’다.
31. <삼위와 주와의 사랑의 관계>를 진정 제대로 깨닫고, 매일 삼위와 주와 ‘사랑의 관계, 교통’을 해라.
32. 깨달았으면, ‘말씀이 전달’된 것이다.
33. <사랑의 관계>에 대해 깨달은 자는 ‘섭리사 최고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이며, ‘삼위일체의 최고 사랑을 받은 자’다.
34. 말씀을 받고 깨달은 자는 성경 말씀대로 ‘신이 된 것’이다. 곧 ‘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함이다.
35. 깨달았으면, 행해라!
36. <생활의 사랑, 삼위와 주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휴거된 자만 알아야 되는 비밀의 말씀’이다.
37. <핵인 사랑의 지체를 확대시킨 몸>을 가지고 ‘영적 사랑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이루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인생을 살아라. 그리하면 시대를 잡아 나가게 된다.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이것저것 다 갖추고 하려면, 못 한다.
2. <목적한 것 하나>만 갖춰지고 <기회>가 오면, 다른 것을 갖추지 못했어도 해라.
3. 집이 갖춰지고, 사람이 갖춰지고, 환경이 갖춰진 후에 하려면 한 세월이 다 가서 자기 청춘, 자기 인생 다 늙어 버린다.
4. <자연성전>도 ‘일부’만 갖췄어도, 하나하나 행하면서 그때마다 갖추면서 개발해 나갔다. 말씀도 전하고, 전도하고, 각종 할 일들을 하면서 긴 세월을 거쳐 오면서 하나하나 갖추면서 완공했다. - 모두 이같이 하여라.
5. 해변에 갔는데 ‘수영복’이 준비되지 않았다. <수영할 물>은 있어 ‘수영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 ‘반바지’라도 입고서 해야 된다.
6. <수영복>은 갖췄는데, <물>이 없으면 수영하겠느냐.

7. <기회>는 오는데, 다 갖춰서 안 온다. <할 일>은 갖춰졌으니 일단 기회를 잡고, 나머지는 하면서 갖춰 나가야 된다.
8. 하다 보면, '여건'이 갖춰지기도 한다.
9. <휴거>도 '기회'가 왔을 때 이뤄야 된다. 하나하나 행하면서 이것저것 두루두루 갖추어 '휴거'되고 '휴거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10. 유능한 자는 급할 때 '맨손'을 '괘이'로 쓴다.
11. 유능한 자는 '호미'도 '괘이'같이 쓴다.
12. 유능한 자는 '끼니'도 때워 가면서 '목적'을 향해 행한다.
13. 어릴 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키우고 크면 '충분'하다.
14. <현실>만 보면 안 된다. <미래>도 보고 행해라.
15. <행해 보고 아는 자>보다 <생각으로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가 더 큰 자다.

<2016년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다 발달되면, 더 이상 발달이 안 된다. - 하나님께 '인간'을 정말 잘 만드셨다고 말하며 더 발달이 안 되냐고 물으니 하신 말씀
2. (하나님)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시킬 <사람>이라 아예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
3. 부모가 그 자녀를 100% '자기 생명체의 뼈와 살'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육, 마음과 생각, 혼, 영>을 100% 성령과 함께 잉태하여 낳으셨다. 자녀는 100% 부모의 뼈와 살이듯, 인간은 100%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4. 참고 견뎌야 그만큼 오랫동안 기쁘고, 마음도 생각도 희망차고 흥분된다. (무엇을 참고 견뎌야 하나?)
5. <불의와 불법>을 참는 만큼 '의의 기쁨과 흥분'이 지속된다.
6. <육적 사랑>을 참는 만큼 '하늘 사랑'이 지속되어 흥분되고 기쁘다. (왜?) 한쪽으로 흥분되면, 다른 한쪽은 못 느낀다.
7. <육적 세상 사랑>을 참고 견디는 만큼 '뇌의 생각, 행위, 혼과 영'이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계속 '영적 사랑의 기쁨'이 지속된다.
8. <땅>에서 '밭'을 떼야 날게 된다. 이와 같이 <땅의 육의 사랑의 밭>을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서 떼야 '혼적'으로 '영적'으로 날게 된다.
9. <육의 것>은 이것저것 손을 뉘야 '하늘 주관권'에서 날게 된다.
10. 유전자도 '난자 혼자'서는 생명체를 잉태하지 못한다. '정자'와 일체 돼야 '생명체'를 잉태하여 '사람'이 된다. 이와 같이 '인간 혼자'서는 '하늘나라 생명의 영'이 못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일체 돼야 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자'와 같고 <인생들>은 '난자'와 같아서, <인간의 육신>이 삼위를 사랑하고 믿고 하나 되면 마치 난자와 정자가 만나 생명체가 되어 '어머니 태 세상'에서 살면서 성장하여 태어나듯이, <인간의 육신>

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면서 <혼과 영>이 성장하고 하늘나라 형상이 되어 ‘천국’으로 가게 된다.

12. <혼과 영>은 육체같이 ‘형체’가 있게 존재하고, <혼과 영>은 쪼개져 있다. 육체 - 혼체 - 영체 = 삼위일체다.

13. <생각>은 육체나 혼체나 영체같이 ‘형체’는 없지만, ‘육과 혼과 영의 운명과 형체’를 좌우시킨다.

14. 생각하는 대로 몸도, 혼도, 영도 자극과 느낌을 받고 변화되며 형체를 이룬다.

15. <뇌신경>은 ‘모터’와 같고,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는 ‘생각’과 같다.

16. <모터>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같이 <뇌신경>에서 ‘생각’이 발생한다.

<2016년 4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께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이나 ‘아름다운 자연과 만물’에 대해 말하면, 성령님은 항상 “그것이 곧 나다.” 하신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았다. 성령님은 ‘최고 극치의 아름다운 여신’이시다. 고로 <천상천하의 모든 아름다움>은 ‘성령님 아래 차원’에 속해 있으니, 성령님이 그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아라.

2. 비유컨대, ‘최고의 작품’이 있다 하자. 그 외에 ‘그보다 낮은 차원의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고 좋은 것’을 극치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겠나. <최고 작품의 이름>을 대면서 표현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낮은 차원의 최고의 작품’도 돋보이고, ‘가장 최고의 작품’도 같이 돋보인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자기 외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곧 나다.” 하시는 것이다.

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휴거>가 최고의 단어다. <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 하신다. 고로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이나 ‘그 면에서 최고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는 <휴거>를 붙여 말씀하시며 “너희도 <휴거>를 붙여서 말하여라.” 하셨다. “월명동 장소와 위치는 <휴거>다. 성자바위 형상과 사연도 <휴거>다. 큰바위 얼굴바위, 주 얼굴 형상 사연도 <휴거>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휴거>다. 삼위가 너와 섭리사에 준 것들은 더 이상 합당한 것이 없으니 <휴거>다.” - 하셨다. <최고의 것>은 <이 세상 최고의 것, 휴거>를 붙여서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고 언어의 표현’을 깨달도록 가르쳐 주셨다.

4. <금메달>은 ‘최고 선수’에게 준다. <수박>도 최고면 ‘금메달 수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소고기 음식>도 최고면 ‘금메달 소고기 음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5. 그래서 <좋은 장소, 좋은 위치>에 있으면 “휴거 장소다. 월명동이다.” 하게 된다.

6. <주의 심정, 주의 말, 주의 행동>과 같으면 ‘주의 몸’이라 한다.

7. <삼위가 보낸 최고의 사명자>는 ‘삼위의 몸’이라 한다.

8.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표현했다.

9. 고로 성령님은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더 이상 갇출 수 없을 만큼 갇춘 자, 최고의 아름다움을 갇춘 자’를 보고, “나 성령이네.” 하시며 “나를 보려면, 애를 봐.” 하신다. (성령 상징체)

10. 700년이 된 천연기념물 소나무가 있기에 “야~ 진짜 멋있다!” 하고, 아는 대로 그 소나무에 대해 30분 동안 이야기했다. 그러니 성령님은 “그것이 나야.” 하셨다. 성령이 ‘천상천하의 최고로 아름답고 예쁘고 신비한 존재’임을 알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11. 성령의 모습이 뇌에 스쳐 ‘생각의 눈’으로 보였다. 그 아름다움이 한 마디로 표현이 안 됐고, 수백 단어를 가져야 표현이 되었다. 그래서 <성자가 주고 가신 휴거 선물 70가지>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니, 성령님은 “그 형상과 모양이 나 성령이다. 자세히 보아라. 내 진짜 모습이 그런 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이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흠 없이 갖췄다는 말이다.” 하셨다.

12.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저녁노을을 보고 “환상적이다! 신비하다!” 했다. 그때 성령이 “나와 같다.” 하시며, 시를 쓰게 하셨다. 유명한 시를 2007년도에 옥에서 썼다.

13. <최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을 보면서 ‘성령님’을 생각하며 대화하면, 그때 성령님은 ‘생각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며 깨우쳐 주시고 대화를 해 주신다.

14. <생각의 눈, 의식의 눈, 인식의 눈>이 떠졌을 때,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듯이 다른 것도 깨달으라고 “그와 같이 나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도 그러하고, 보낸 자도 그러하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를 평생 계시의 방법으로 보고 행해라. 이를 무시하면 기도해도 잘 못 깨닫는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생활 속의 자연 만물’을 통해 많이 느끼게 하시고 많이 말씀하신다.

15. 실수로 물을 엮거나 물건이 떨어져 깨져 충격을 받았을 때나, 생활 속에 어떤 좋고 나쁜 일을 극적으로 겪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지켜보시다가 “이때가 깨우쳐 줄 기회다!” 하며, 꿈이나 생시에 깨우쳐 주신다.

16. 아무리 미인이라도 ‘각자 개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님은 ‘지구 세상 모든 미인들의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치 ‘수천 가지의 옷’을 갈아입듯이, ‘수만 가지’로 그 얼굴과 몸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가 없다.

17. 성령님은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을 ‘수백만 가지’나 가지고 계신다. 각 사람의 차원대로, 깨달음대로, 급수대로 그때마다 ‘그 아름다움’을 보여 주신다.

18. <영의 세계>도 ‘그때마다 자기 생각과 행위의 급수’대로 보인다. 자기 수준 이상의 것은 흐릿하게 보인다. 자기가 더 행하고 차원을 높이면 ‘더 이상적인 것’이 보인다. <영의 세계>는 ‘자동 세계’다. 자기 급에 따라서 그때마다 자동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보인다.

19. <성령님>은 증거의 신이다. 감동의 신이다. 사랑의 신이다. 이해시키는 신이다. 긍휼의 신이다. 자비의 신이다. 용서의 신이다. 신비의 신이다. 아름다움의 신이다. 보살피는 신이다. 키워 주는 신이다. 위로의 신이다. 때를 기다리는 신이다. 깨끗한 신이다. 순결의 신이다. 세밀한 신이다. 청결의 신이다. 안 계신 곳이 없는 신이다. 진선미(眞善美)의 신이다. 전지전능하신 신이다. 하고자 하면 못 할 것이 없는 신이다. 하나님과 일체라 그러하다. - 기본으로 ‘이 같은 것 100개’는 알고, 성령님을 대하고 살아야 된다.

20. <성령님>은 아름다움이 웅장하고, 신비함도 웅장하고, 그 형상과 선이 참으로 웅장하다. <인간>은 ‘아기의 아름다움’ 같고, <성령님>은 ‘다 성장한 여자의 아름다움’ 같아서 누구도 못 따라간다. <인간>은 ‘장난감 차’ 같고, <성령님>은 ‘고급 세단’ 같다. 기본은 장난감 차도 가지고 있으나, 그 모양이 작아서 고급 세단을 못 따라간다. 성령님도 그러하다.

21. <인간>은 ‘분재 소나무’ 같고, <성령님>은 ‘700년 된 천연기념물 소나무’ 같다. 그래서 못 따라간다.

22. <인간>은 ‘댐’ 같고, <성령님>은 ‘바다’ 같다. 하나님도 성자도 그렇게 존재하신다.

23.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갖추면 멋있다. 육도 완성되고 영으로도 갖추면 ‘성령 상징체’로 보인다.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입의 끈이다.
2. 입의 은혜의 끈이다.
3. 입의 낚시다. 말의 낚시다.
4. 간사한 자, 탈취하는 자의 ‘입의 낚싯줄’에 걸리지 말아라.
5.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구해라. 악한 자들과 해하는 자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꼭 기도해라. 삼위와 대화해라. 접촉해라. 교통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악의 침범’을 막고 ‘악’을 멸해 주신다.
6. <무고히 해를 주는 자들이 서 있는 위치>는 ‘해를 받는 위치’이기도 하다. 고로 <해를 주는 자들>이 곧 ‘해를 받는 자’가 된다.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7. 결단하고 기어올라 ‘해를 받는 주관권의 산’을 넘어가라! ◎ 지금부터 전하는 잠언을 잘 듣기 바랍니다.
8. <마음>은 어디에 쓰든지, ‘좋아서 쓰면’ 즐겁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대화와 접촉’이 그리도 크다.
10. <대화와 접촉>으로 가까워진다.
11. <대화>는 ‘생활의 사랑 관계’다.
12. <접촉>과 <대화>와 <교통>이다.
13. <대화와 접촉>은 ‘산 자’만 할 수 있다.
14. <행하는 자>가 ‘산 자’다.
15. <대화와 접촉이 끊어진 자>는 ‘죽은 자’다.
16.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도 ‘대화’이며 ‘접촉’이다.
17.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도 ‘대화와 접촉’이며 ‘교통’이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대화와 접촉’이며 ‘교통’이다.
19. <대화>로 얻고, <접촉>으로 하나 되고, <교통>으로 주고받는다.
20. <음식>도 접해야 맛을 알고 느낀다. <인간>도 접해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맛을 안다. <삼위>도 <주>도 대화하고 접촉하고 교통해야 그 생각을 알고, 그 행하심을 알고, 맛을 안다.
21. 인생은 ‘입맛, 눈 맛, 귀 맛, 몸 맛’이다.
22. <요리 전문가>는 음식을 만들 때 ‘각종 맛’이 나게 한다. <사람을 만드는 기술자>도 사람을 만들 때 ‘각종 맛’이 나게 한다.
23. 하늘과 대화하고 접촉하면서 <자기>에게 ‘각종 맛’이 나게 하며 <자기>를 맛있게 만들어라. 그리하면 매일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고 살듯, 인생을 맛있게 살게 된다.

24. 누가 자기를 그리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고 맛있게 해 주겠느냐.

25. <자기>를 만들어서 ‘각종 맛’을 내면서 재미있고 기쁘게 살아라.

26.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양과 형상’으로 멋있게 만들었으니, 그 터전 위니에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멋있게 만들어서 써라. 그러면 <자기>가 기쁨이며 희망이다.

27. <자기 자신>으로 인한 기쁨과 희망과 흥분과 느낌이 없으면, 곤고하다. 상대가 기쁨과 희망을 줘도 못 받는다.

28.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잘 만들면, 자기에게 ‘복’이 오고, 그 영이 변화되어 ‘영원한 세계 천국’을 얻게 된다.

29. <자기 몸과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 안의 기쁨체’다. ‘복덩이’다. ‘희망 덩이’다. ‘보화 덩이’다.

<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30. <좋은 말 한 마디>가 ‘화룡점정’이다.

31. 그림에서 ‘핵의 점’이 보는 자의 마음을 당기고, 발목을 붙잡고, 눈에 꽂히게 한다.

32. 생명의 말씀도 ‘한 마디 핵의 말씀’이 ‘전체’를 빛나게 한다.

33. 설교도 ‘한 마디 핵’으로 영계에 들어가게 한다.

34. 행사 때 ‘핵 한 가지’가 ‘그 행사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35. 음식의 맛을 낼 때 ‘소금 한 가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 음식의 맛’이 좌우된다.

36. 그림도 ‘그 그림의 핵’을 그려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 ‘그림 전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37. 설교할 때 ‘핵의 말 한 마디’를 못 하면, 전체가 힘이 없다.

38. 월명동 자연성전도 ‘핵 하나’로 인해 ‘전체’가 더 빛나고, 생동감이 있고, 눈길을 끈다.

39. 때에 따라 열린 ‘열매’로 인해 ‘나무의 때 걸작’이 된다.

40. 자연성전의 <야심작>이 ‘때에 따라 열린 열매’ 격이다.

41. 각자 개성별로 ‘핵’을 만들어 놓았다.

42. <형상석>을 볼 때도 ‘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동물 형상, 사람 형상, 신의 형상’- 이것을 찾아야 ‘핵’을 본 것이다.

43. 말할 때도, 생각할 때도, 행할 때도 ‘핵의 점’이 빠지면 ‘금단의 열매가 없는 여자’와 같고 ‘생명나무가 없는 남자’와 같다.

44. 몸의 점이다. 말의 점이다. 생각의 점이다. 행함의 점이다.

45. <핵>과 <전체>다. 그래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46. <폭포수>가 ‘핵’이라면, <주변의 산과 호수>는 ‘전체’다. <폭포수>가 ‘금단의 열매, 생명나무’라면, <주변의 산과 호수>는 ‘몸’이다. 항상 <핵>과 <전체>가 하나 돼야 빛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핵>은 ‘주’요, <전체>는 ‘주의 몸들’이다.

47.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은 ‘일체’다.

48. <머리>는 ‘하나’요, <몸>은 ‘수십억’이다.

49. <모양>은 ‘수십억 가지’이지만, <자기라는 맛>은 ‘하나’다. (<자기와 같은 몸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지구상에 수십억 명이다. 그러나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한 명이다.)

50. 개성의 왕들이다.

51. 존재물은 ‘생긴 맛’, 그리고 ‘쓰는 맛’이다.

52. 사람도 그러하다. ‘생긴 맛’, 그리고 ‘쓰는 맛’이다.

53. <자기>를 만들어 첨단으로 ‘맛’이 나게 해라.

54. <사람>같이 ‘좋은 맛’을 내는 존재자를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다.

55. <자기 생각과 행실>로 ‘자기 인생의 맛’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나쁘게 변하게 하기도 한다.

56. 말씀의 맛, 기도의 맛, 찬양의 맛, 예술의 맛이다.

57. <세상 예술>은 썩은 예술이 되어 ‘썩은 과일 맛’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썩는 예술의 맛’이 체질에 뻘었다. 결국 병들어 버렸다.

58. <절대 하나님 주권권 안의 예술>은 ‘싱싱한 과일’과 같아서 ‘과일 본연의 향기’를 그대로 뿜어낸다. 이는 ‘산 예술’이다. 그 주권권으로 가야 육도 영도 살아나고 ‘영원한 예술’이 된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행해야’ 존재한다.

2. 누구나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고로 ‘보편적’으로는 행한다.

3. 가령 아무리 게으른 자라도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니, 늦게라도 대충이라도 뭐라도 해 먹는다. 안 하면 배고파서 못 견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람은 ‘보편적’으로는 행하며 산다.

4. <보편적으로라도 행하는 자>는 ‘죽는 행위’는 안 한다. 고로 살릴 수 있다.

5. <아예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살릴 수도 없다.

6. 전쟁터에서도 ‘보편적’으로는 다 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치’를 알게 된다.

7. <불의한 자>도 존재하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숨어서 ‘최소한 보편적’으로는 행한다. 고로 그로 인해 알게 되어 잡게 된다.
8. <사탄>도 아무리 숨어서 행해도 자기 목적을 위해 ‘최소한’은 행하니,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
9. <적의 나라>도 목적을 위해 숨어서라도 ‘보편적’으로는 행하니, 그것으로 그 행위를 알게 된다.
10. <악평자들>도 목적을 위해 숨어서라도 ‘보편적’으로는 행하니, 그것으로 그들의 행위를 알게 된다.
11. 가령 감나무의 감을 주인 몰래 따 먹으려 한다 하자. 아무리 몰래 따 먹어도 ‘최소한 보편적’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다. 돌을 던져서 그 많은 감들 중에서 하나라도 떨어지게 하여 먹든지 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알게 된다. 사탄도, 악인도, 선인도, 그 어떤 자도 존재하기 위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편적’으로는 행한다.
12. 감나무의 감을 못 따 먹게 나무에다 가시나무와 철망을 감아 댄어도 마음 놓지 말아라. 장대로 따 먹기도 하고, 돌을 던져 따 먹기도 하고, 갈고리로 높은 가지를 잡아당겨 따 먹기도 한다. (생명도 그러하다.)
13. 감나무의 감을 따다가 방에 댄어도 마음 놓지 말아라. 도둑이 방에 침범하여 훔쳐 가기도 한다. (생명도 그러하다.)
14. 절대적으로 간수하고 행해라.
15. 아무리 나태하고 하기 싫어하는 자도 안 죽으려고 ‘작게라도’ 행한다.
16. 누구나 살기 위해 ‘숨’은 쉰다. 이와 같이 ‘작게라도’ 행한다.
17. 아무리 안 하는 자라도 ‘실 가닥만큼’이라도 행하기 때문에, 그 ‘실 가닥’을 잡고 ‘크게’ 행하게 할 수 있다.

<2016년 4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8. <계시>는 ‘상대’에 따라 받게 되고, ‘상대의 처지’에 따라서 받게 된다.
19. 가령 <계시자>가 ‘사랑하는 자’라면,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계시를 주신다.
20. <계시>는 ‘말’이다. ‘대화’다. ‘지시’다.
21. <삼위일체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의 계시’를 주신다.
22. <사랑하는 자>끼리는 항상 마음이 열려 있으니, 밥을 먹는 중에도, 씻고 있는 중에도, 정신없이 일을 하는 중에도 ‘대화할 것’이 있으면 대화한다. <타인>은 장소를 마련하고 조건을 갖춰야 된다. - 삼위일체도 그러하시다.
23. <가장 편하게 대하는 자>가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자’다. - 삼위일체 앞에도 그러하다.
24. <신앙의 극에 올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언제든지 편하게 대화신다.
25. <눈치 보고 말해야 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 대상>은 실상은 ‘먼 자’다.
26. <편히 대하는 자>는 ‘한 족속’이다. ‘사랑하는 자’다.
27. “신이 이것도 행하실까?” 의심할 것 없다. <신>은 ‘육체’가 없으니 행하신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절대자 신’을

의심한다. 왜 그럴까? ‘자기’는 못 하니 ‘신’도 못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신>은 ‘영의 몸’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듯 하시니, 하신다. 전능자 삼위일체를 의심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28. 전능자는 ‘육체’가 아니다. 고로 ‘공중’을 ‘땅’같이 다닐 수 있듯이, 다 하신다. 다만 ‘인간의 육신 쓰고 하는 일’ 중에는 못 하는 것이 많다. 왜 그럴까? ‘인간의 육신’을 쓰고 해야 하는데, 인간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하셔도 <인간>이 못 하니, 다시 또 하고 또 하여 결국 행하셨다.

29. 절대자 하나님도 ‘인간의 육신’과 같이 하면, ‘육신의 한계’까지밖에 못 하신다.

30. <어른>이 ‘어린이’를 시켜서 하면, ‘어린이의 힘 수준’까지밖에 못 한다.

31. 자꾸 행하여 갖추어라. 만들어라. 그러면 전능자가 ‘네 육신’을 쓰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아멘.)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본체보다 작은 <그림>이나 <사진>이나 <조각>이나 <조형물>은 ‘본체, 실물, 실체’를 생각나게 할 정도이지, 느낌도 만족도도 현실감도 적고, 아름답지도 신비하지도 웅장하지도 않다.

2. 작으면 ‘작품성’이 떨어진다.

3. <사진>도 <그림>도 클수록 현실감이 있다.

4. <큰 사진, 큰 그림>을 보다가 <축소한 것>을 보면, 일순간에 비교가 되면서 눈에 안 들어온다.

5. 겨울에 밖에서 ‘큰 불’을 쬔다가 ‘작은 불’을 쬔면, 일순간 따뜻한 느낌이 없어진다.

6. 겨울에 ‘40도 되는 뜨거운 욕실’을 쓰다가 ‘30도가 되는 욕실’에 들어가면 썰렁하다. 만사의 모든 것도 그러하다.

7.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가면, 작은 만큼 작게 느껴진다. 고로 전도하여 교회를 키워라.

8. <어린 소녀>를 보다가 <성장한 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고로 어서 신앙을 키우고, 큰 자들도 전도해라.

9. 10대 때는 그때가 최고 멋있는 때로 보인다. 커서 20대가 돼 보아라. 옛날 사진을 보면 너무 어리게 보인다.

10. 20대 때는 그때가 최고 멋있는 때로 보인다. 30대 때 보아라. 과거 20대 때의 모습이나, 20대 때 한 일들이 마음에 안 든다.

11. 인생은 ‘육신’은 늙어 간다. 그러나 크면 다르다. 나무가 크는 만큼 다르게 보이듯, 인생도 그러하다.

12. 나무도 100년 큰 나무를 보면 최고 멋있다고 한다. 그러다 200년 된 나무를 보아라. ‘모양’부터 다르다. 인생도 그러하다.

13. 200년 된 큰 나무를 보고 최고 아름다운 때라고 하지만, 300년 된 큰 나무를 보아라. 전혀 다르다. 조금만 달라도 표가 확 난다.

14. 인생도 그러하다. 조금만 더 성장하고 행하면, 달라져서 표가 확 난다.

15.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생길수록 ‘하향 인생’ 살지 말아라. 마음도 생각도 성장했고, 몸도 다 컸고, 그동안 행한 것들이 있으니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아깝다. 계속해서 열 내어 행하며 ‘상향 인생’ 살아라. ‘더 좋은 휴거’를

이루어라.

16.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연륜이 짧은 자들도 계속해서 커라. 크는 만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크는 만큼 표가 나니, 기쁨으로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며 행해라.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네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려다가,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저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2. <이것>만 생각하고 하면 <저것>에 문제가 생기니, '두 가지'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해라.

3. 사람을 대할 때도 <한 사람>만 좋게 해결하려 하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둘 다' 보고 지혜롭게 행해라.

4.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저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5. 악평자들은 혈기로 속 시원히 악평했지만,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했다. 곧 그 죄로 인해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보낸 것>이다.

6. 사람은 순간의 혈기로 그 순간 살인적인 일까지 저지른다. 그러나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로 인해 '각종 해'를 받게 된다.

7. 어떤 사람은 순간의 혈기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급히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악평하고 반대하고 막고 미워하며 불의를 행한다.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음모하고 핍박한다. 이에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심판하시고, 하나님도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들은 악평했지만, 악평은 하나님이 그리하라고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8. <순리>는 '양단의 중심'을 지켜 행하니, 다 잘되게 한다.

9. <하나님의 절대적 법>으로 행하면 공의로우니, '양단'이 잘되고 형통한다.

10. 말도 <한쪽>만 보고 <한 가지>만 말하면 '모순'이다. <양단>을 다 보고 말하고 판단해야 '공의'다.

11. 그림을 그려도 '한쪽'만 생각하고 그리면 '전체 균형'이 안 맞는다. 인생 삶도 그러하다.

12.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자>에게 빠져서 '그 한 가지'에만 빠져 살면, '삶의 전체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한계를 맞게 된다. ◎ 계속해서 다음 잠언을 들겠습니다.

13. <꿈>은 '시간'마다 변한다. 새벽 1시, 2시, 3시, 4시... 시간마다 꿈이 점점 안 좋게 변한다.

14. <꿈>은 '계시'다. 최고로 행해야 '최고로 좋은 꿈'이 보이고, '최고로 좋은 것'을 얻게 된다.

15. <1:1>로 해야 잘된다.

16. 하늘의 생각과 자기 생각 1:1, 자기와 상대 1:1이다.

17. 전도할 때도 '1:1'로 해야 잘된다.

18. 설교할 때도 성령의 감동과 주의 심정으로 전할 때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1:1'로 설교하는 것이 된다.

19. 성자와 100% 의논하고,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맞추고 일체 되어 행할 때 '1:1의 삶'이 된다. 고로 잘된다.
20. 꿈에서도 성령과 땅의 성자와 '1:1'로 만나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섞여서 다 같이 만나면 '일체 된 삶'이 아니다.
21. 성령이 '1:1'이라고 말씀하신 계시를 깨달아라.
22. <1:1>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둘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실'이 돼야 <1:1>이 된다. 극적인 삶을 살아야 상대를 '1:1'로 만나게 된다. 자기도 상대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23. <성자 주의 잔치>에 참여해라. '1:1 사랑의 잔칫집'이다.
24. 성자 앞에 꺼림 없이 행할 때에 '1:1'로 만나게 된다.
25. <영의 문>을 열어 났으니, '꿈'이나 '영계'로 보아라.
26. 한눈팔지 말고 전심으로 주를 좇아라. 그래야 '1:1'로 만나서 같이 행하게 된다.
27. <1:1>로 주와 생각을 일체 시켜 전심으로 행할 때다.
28. (성령과 성자 주) 나와 '1:1'로 만나자. 대화하자. 접촉하자. 교통하자. '1:1'로 행해야 '잡생각' 없이 잘 행해진다.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1:1> 행함의 삶이다.
2.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을 생활 속에 행하는 것>이 '1:1 삶'이다.
3. <하늘 앞에 약속하고 행하지 않고 사는 자>는 '성자 주와도 1:1이 안 된 자'이다. 이는 마치 자기 사랑하는 자와 '1:1'로 만나 이야기하려 하는데, 다른 사람을 옆에 같이 있게 하는 여건이 되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격이다.
4. <생시>에 하늘과 '1:1'이 돼야 <꿈>에 혼도 그리한다.
5. <기도할 때>도 '1:1'이 돼야 하늘과 대화가 된다.
6. 아무와 1:1이면 되겠냐. <자기가 원하는 자>와 '1:1'이 돼야 잘된 것이다.
7. 꿈은 풀어야 푸집하다.
8. 한 지역에 가니 새로운 도로를 내서 깨끗했다. 그런데 <도로>는 있는데 <순찰하는 자가 근무하는 초소>가 없다고 하여 누가 대충 만들었는데 '돌로 쌓은 담' 수준이었다. 그러니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것을 보고 "아예 처음부터 잘 계획해서 했으면 얼마나 깨끗이 했겠냐. 공사 기술자이니 하라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재정이 더 들어가고, 이미 공사한 곳을 헐고 다시 해야 하니 힘들다." 했다. 일을 할 때는 먼저 '계획'하고 '설계'해야 된다. 신앙의 일도 그러하다. 기도도, 강의도 그러하다. 삶도 그러하다. 아예 할 때 잘해야 된다. 기도할 때 '기도할 것'을 빼먹으면, 나중에 그 단계에서 '빼먹은 것'을 다시 기도하려면 잘 안 되고 힘들다. 할 때 제대로 하기가.
9. <3.16 휴거 날>의 기쁨과 흥분과 신비함의 느낌이 끝나면, <후>에는 그때같이 못 느낀다. 그 후부터는 생활 속에서 움직이면서 휴거의 삶을 살아야 <생활 속>에서도 '3.16 휴거 날의 기쁨과 흥분'이 연속된다.

10. <핵>과 ‘연관’되고 ‘연결’돼야 ‘연속’된다.

11. <하늘>은 ‘핵’이다. <땅>은 ‘대상’이다. <인간>이 ‘삼위일체’와 연관되고 연결되어 행하며 살아야 ‘그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낀다.

12. 연관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끊어졌으니 죽은 것이다. <하늘>은 ‘생명의 근원체’이고, <땅의 인간>은 ‘육체’다. 하늘과 연결되고 일체 돼야 인간이 ‘살아 있는 영’이 된다. 그래야 느끼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까지 해진다.

13. 말씀을 들을 때나, 집회를 할 때는 ‘기쁨과 흥분과 감동과 깨달음’이 몰려온다. 그렇다고 일주일, 열흘, 한 달, 1년 내내 계속 말씀만 전해 줄 수도 없고 집회만 할 수도 없다. 또 기도할 때 많이 깨닫고 기쁘다고, 연속해서 기도만 할 수도 없다. 이는 음식을 먹었으니, 계속 먹을 수 없는 격이다. 양대로 먹었으면, 더 이상은 못 먹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의 역사>도 <감동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도 한계까지 하면, 자동적으로 끝난다. 신앙 안에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기도 대화>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차원의 단계’가 있다. 곧! ‘생활 속으로 가서 뛰고 달리는 단계’다. 고로 말씀 듣고 성령 받고 기도 대화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생활로 들어가서 뛰고 달리는 세계’로 전환되어 행하며 살아야 된다. 배운 것을 행하고, 감동받은 것을 실천하고, 성령 받았으니 더 힘 있게 뛰고 달리고, 하늘 사랑에 불타서 살아야 된다. 이같이 살아야 육도 영도 자꾸 변화되어 ‘차원 높이는 휴거’가 일어난다.

14. 6단계 1단계 : 집회 때 은혜와 감동과 성령을 받고, 2단계 : 생활 속으로 가서 행하여 얻고, 3단계 : 얻은 것을 쓰고 즐기고, 4단계 : 그리함으로 육도 영도 계속 변화되어 차원 높이고, 5단계 : 차원 높였으니 새로운 것을 얻고, 6단계 : 새롭게 더 변화되었으니 삼위일체를 만나 사랑하며 살기다. 이것이 ‘휴거의 삶’이다.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현재 차원에서 조금만 더 하면, 마치 시간에 따라 시계 바늘이 옮겨지듯 자기 차원도 옮겨진다.

2. 조금 더 하면, 사탄도 손이 안 닿아서 애간장 태우고 소리만 지른다. 소리지르는 것이야 직접 고통을 안 주니 별것 아니다.

3. 조금 더 할 것을 못 하면, 사탄의 손에 닿아 잡힌다. 그리고 사탄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4. (초안) 조금 더 하면 안 잡힌다.

5. 사탄의 전술을 알아라!

6. (초안) 조금 더 해서 꺾어서 가면, 딴 세계다.

7. <사람의 핵심>은 ‘생각’이다. <실천의 핵심>은 ‘생각’이다.

8. 말씀을 듣고도 얼마나 행하고자 하느냐 하는 ‘의지’에 달려 있다.

9. 위대한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만 기쁘지, 얻지 못하고 사라진다.

10. 위대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마치 폭탄 터지듯 그 위력을 나타내게 된다.

11. <행한 자>는 ‘사탄의 입에 폭탄이 터지게 한 자’다.

12. <생각의 강도>에 따라서 힘과 위력과 능력이 강하게, 혹은 약하게 나타난다.

13. 힘이 있어도 힘을 안 쓰면, 하는 것 없이 힘이 소모된다.

14. 육신이 행하되, <목적>은 '혼과 영'에게 두고 행해야 된다. 육이 '육적인 것'만 행하면 자위행위 하는 꼴이 된다.

15. <자기 육의 짝>은 '자기 영'이다. 고로 <육>은 '자기 영'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 <자기 영의 짝>은 '자기 육'이며 '삼위일체'다. 고로 <영>은 '자기 육'과 '삼위일체'를 위해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힘도 오고 정말 희망과 기쁨이 온다.

16. <육>이 '육'만 위해 지구만큼 행했어도 '육'이 늙거나 죽으면 끝난다.

17. <육>이 '영'을 위해 행했으면, 영원히 남아 존재하게 된다.

18. <영>을 '휴거'시켜야 된다. <젊고 예쁘고 맛있는 몸>을 가지고 '자기 영을 휴거'시켜야 <영>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삼위의 사랑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존재하게 된다.

19. <영>이 '육이 행한 것'을 다 가지고 구원받고 변화되면, 영원히 가지고 살면서 누린다. <자기 영>이 있으니 '육'뿐만 아니라 <혼>도 '휴거된 몸'으로서 누린다.

20. 구원받지 못하면 육신도 허무하고, 영도 허무하고, 세상만사 모든 것이 모두 '사망과 흑암'으로 끝나게 된다.

21.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은 꿈결 같고,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시같이 현실적으로 생생하다.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으로 살아가니 못 느낄 뿐이다.

<2016년 4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22. 사람이 <힘>이 있어야 '능력'을 나타낸다. 신앙도 그러하다. <의의 힘>이 '능력'이다.

23. 행해야 '힘'이 온다. '의'를 행함이다.

24. 행하는 만큼 '힘'이 온다.

25. <의>를 행하는 만큼 '의의 힘'이 온다.

26. <육신의 힘>을 가지고 '육에 해당되는 것들'을 안 하면, 마치 시간이 지나면 '남는 시간' 없이 사라지듯, '힘'도 사라진다.

27. <힘>은 그때마다 쓰기다. <힘>은 안 쓰면 사라지고, 쓰면 그로 인해 남긴다.

28. <돈>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듯이, <의>가 없으면 '영의 것'도 얻을 수 없다.

29. <휴거의 삶>이 최고 비싸다.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삶이다.

30. <황금성>은 '일반 의 값'으로는 못 간다.

31. <휴거>는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사랑, 주 사랑'으로 된다. '사랑 값'이 그리 크다.

32. <휴거의 삶을 얻는 데 있어 의>는 '삼위와 주를 향한 사랑'이다. 그리고 '주의 조건'이며 '주를 믿고 일체 되는 것'이다.

33. 주를 조금 믿으면 '힘'도 조금 온다. 온전히 믿어야 '온전한 사랑의 힘'도 오고, '행할 의지와 생각'도 온다.

34. 받아도 ‘가치’를 모르면, 제대로 못 쓴다.

35. <최고의 기준>을 세우고, ‘최고의 것’을 받는다.

36. 돈 버는 데 종류가 많듯이, 의를 벌고 쌓는 데도 종류가 많다. 말씀 받기, 말씀 행하기, 부흥집회와 성령집회로 심령들 살리기, 자연성전 건축하기, 각 교회 성전 건축하기, 새벽기도, 기도, 찬양, 삼위일체 사랑, 주 일체, 전도, 가르치기, 강의, 관리, 설교, 증거, 감사, 십일조, 악평자 막기, 악평자와 싸워 이기기, 환난과 시험을 이기기, 서로 화평하게 하기, 모르는 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기 - 이런 것들이 모두 ‘의의 일’이다.

37. 죄 안 짓는 것도 의다. 죄를 지으면 의가 소모된다.

38. 세상은 ‘옷이 날개’이고 ‘돈이 날개’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의가 날개’라서 <의>에 따라 ‘옷’을 입고, <의>에 따라 ‘빛’이 나고, <의>에 따라 ‘권세’가 주어진다.

39. 영의 세계에서는 ‘사명’으로 영의 미가 좌우되고, ‘의’로 영의 미가 좌우되고, ‘사랑’으로 영의 미가 좌우된다.

40. <자기 의>에 따라 ‘휴거 차원’이 좌우된다.

41.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살면 엄청난 의를 행하게 되어, 꿈에 자기 가방에 돈이 꽂 찬 것을 보여 준다. 이는 <의>가 ‘돈’과 같다 함이다. <시간>도 ‘돈’과 같다 함이다. <자기 시간>을 투자하여 삼위의 뜻대로 살면서 <의>를 행했으니, 꿈에 그렇게 보여 준 것이다.

42. <황금 같은 시간>은 ‘새벽’이다. <황금>이 뭐냐. ‘삼위일체’다. <새벽>은 삼위와 일체 되어 기도하고 교통하고 대화하는 때다.

43. 꿈에 혼이 ‘돈’ 없이 시장이나 상점을 기웃거리고 다닐 때가 있다. 이는 <하늘을 만나는 시간>과 <의>가 그만큼 바닥이라는 것이다. 일주일, 열흘,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면, 지갑이 찢어지게 돈이 채워진다. 모두 ‘자기 육의 실상, 혼과 영의 실상’을 보여 준 것이다.

44. <죄>를 지으면 ‘도둑맞은 자’와 같다.

45. <시간>을 뺏겨도 ‘도둑맞은 자’와 같다.

46. ‘행한 대로 주신다.’ 함은 - ‘의의 값대로 주신다.’ 함이다.

47. 자기 혼이 영계에 다닐 때는 ‘자기 육의 의’에 따라서 옷을 입기도 하고, ‘임무와 활동’에 따라서 합당하게 입기도 한다.

48. 꿈에서 자기 혼이 입은 옷이나, 자기가 거하는 방이나, 집이나, 환경이나, 만나는 자들은 ‘자기 육 행위의 차원’을 보여 준 것이다.

49. 환난과 핍박과 악평을 이기면, ‘의 값’이 매우 크다.

50. <의>가 없으면, 사탄이 깔보고 혈값으로 여겨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 한다.

51. <의>가 ‘무기’다. ‘가치’다. <의>가 없으면 영도 육도 ‘사랑 부도’가 난다.

52. 어떤 자는 <시간>을 빚지고 다닌다. 세상으로 육적으로만 시간을 쓰고, 의를 행하지 않아서다.

53.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도우면, 빛이 청산된다. 이와 같이 <의 많은 자>가 ‘의 없는 자’를 도와 대신 의 값을 내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직된다.

54. <주>는 ‘이 시대 의의 재벌’이다. 그 의로 ‘원하는 자들’을 다 살린다.

<2016년 4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55. 날마다 ‘조금 더 하기’다. 그래야 ‘큰 자’가 된다.

56. 길도 10cm만 조금 더 넓히면, 못 가다가 통과하게 된다. 조금 더 함으로 ‘운명’이 바뀐다.

57. 현재 상태에서 ‘배’로 더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58. 세상에서 ‘돈 벌기’ 힘들듯이, ‘의 쌓기’ 힘들다. 앞날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꾸준히 의를 행하여라.

59. <의>를 많이 행하려면, ‘자기가 할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래야 ‘행할 것’이 생각나서 행하게 된다. 그러려면 성령을 부르고, 성령과 일체 되어 행해라.

60.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라. 성령은 ‘증거의 신, 진리의 신’이다. 고로 ‘진리’에 온전히 서야 된다.

61. 성령은 ‘성결의 신’이다. 고로 깨끗해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잘 받는다.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안 행할수록 성령과 하나 된다.

62.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다! 회개하면, 더러운 몸과 옷을 깨끗이 하고 다니는 격이다.

63. 사탄은 ‘죄에 개입하는 권세’를 가졌다. 고로 ‘회개’로 사탄을 처리하고 해결해라.

64. 형제를 미워하면, 사탄이 온다.

65. 조금만 더 하면, ‘문제’가 풀린다.

66. 조금만 더 하면, ‘답’이 온다.

67. 조금만 더 하면, ‘걱정·근심·염려’가 없어진다.

68. 조금만 더 하면, ‘완전’해진다.

69. 조금만 더 하면, ‘물’이 나와서 ‘샘’이 된다.

70. 조금만 더 하면, ‘성자 주의 손’을 잡는다.

71. 조금만 더 하면,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

72. 조금만 더 하면, 뺏는다.

73. (초안) 조금만 더 하면, 사탄을 절벽 밑으로 떠밀어 전멸시킨다. 고로 조금만 더 해라!

74. 조금만 더 하면, ‘과거에 수고한 것’이 해결되어 끝장난다.
75. 조금만 더 하면, ‘죽어 가는 생명’을 살린다.
76. 조금만 더 하면, 생명들이 녹아진다.
77. 조금만 더 하면, ‘깨끗’하게 된다.
78. 조금 더 못 하니, ‘꿈’이 깨지고 일을 망치게 된다.
79. 조금만 더 하면, ‘지금까지 만든 것의 전체’가 모두 빛이 나게 한다.
80. 조금만 더 하면, 찾는다.
81. 조금 더 못 해서 ‘10년 동안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82. 조금만 더 하면, ‘목적지’에 다다른다. 목적지에 다다라야 ‘다음 코스’를 대가로 받는다. 고로 또 희망이다. 또 얻는다.
83. 뒤통치를 들어 올리듯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안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은 무한하다! <힘>은 네 안에 있다. 해야 그 힘이 나온다.
84. 조금 더 하면, 열린다.
85. 조금 더 했더니, ‘20년 동안 원했던 희망’이 이루어졌다.
86. 조금 더 했더니, ‘2000년 신약역사의 선을 넘어 새 역사를 발견’한 것이다.
87. <기성>은 조금 덜 하고 ‘백지장 뒤’에서 살아간다. 귀를 대 보면, 새 역사를 찾아다니는 발자국 소리도 나고, 하도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다가 고개 아파하는 소리도 났다. “혹시나 주가 왔나?” 하는 소리도 들리고, “아이고, 청춘이 다 늙어 버렸네!” 하는 소리도 들리고, “어디지? 거기인가?” 하는 소리도 들렸다. 고로 조금 더 해서 거기서 끌어내 주자!
88. <조금>은 ‘아예 없는 데’다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그동안 해 놓은 터전’에다 하는 것이다. 고로 조금 더 함으로 인해 ‘엄청난 운명의 것’을 얻게 된다!

<2016년 5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2. 영계에서 보니 ‘소경’이 있었다. 그런데 섭리인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그 소경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소경을 따라다니니, 똑같이 소경이었다. - <모르는 것>은 몰라서 못 보니 ‘소경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모르는 자의 말을 듣는 자>가 ‘소경’이다.
3. <어떤 사건을 모르는 자>는 ‘그 면의 소경’이다. 고로 ‘그 면에서 모르는 자’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4. 아는 만큼 ‘소경’을 벗어난다.
5. <머리>만 확실히 안다. <지체>는 머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모르면 <그 면의 소경>이니 육신이 ‘모

르는 자'에게 끌려다니고 '자기 영광'을 뺏기고 산다. 주와 일체 되어 '주가 하는 말'을 믿어야 '소경'에서 벗어난다.

6. <정리 정돈>이 있고, <아예 소각해 버리는 것>이 있다.

7. 쓰레기를 치울 때 <쓰레기를 모아서 한쪽에 정리해 둔 자>가 있고, <아예 버리고 없애 버리는 자>가 있다. - 이와 같이 죄도 <마음에 정리만 한 자>가 있고, <회개하여 소각해 버리는 자>가 있다.

8. <소각>해야 '심판'에서 벗어난다.

9. 청소할 때 <정리만 하는 단계>가 있고 <아예 깨끗하게 청소하여 소각해 버리는 단계>가 있다. - 일할 때도 <정리하는 단계>가 있고 <아예 다 해 버려서 없애 버리는 단계>가 있다. 이것이 '소각'이다.

10. 할 것을 하기로 각오만 하고, 죄를 회개하기로 마음만 먹은 상태는 <정리 단계>로서 '심판'에 해당된다. 행한 것과 온전히 회개하여 없앤 것만 <소각한 것>으로서 '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11. 영계에서 <정리만 한 집>과 <아예 깨끗하게 해 놓은 집>을 보았다. <아예 깨끗하게 해 놓은 집>은 방마다 벽지까지 다 뜯어 새 벽지를 바르고, 어떤 한 가지의 물건도 없이 깨끗하게 치워 놓고 새 단장을 했다. '정리'가 아닌 '소각'이었다.

12. 영계에서 보니, 어떤 한 방은 '정리'만 해 놓았다. 쓰레기를 모아 봉지에 담아 한쪽에 쌓아 놓았고, 옷도 정리해서 한쪽에 쌓아 놓았다. 수십 가지 물건들이 여기저기에 정리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 이런 신앙을 하는 자들을 보여 준 것이었다.

13. 다른 한 방은 정리도 안 된 채로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 이런 신앙을 하는 자들을 보여 준 것이었다.

14. 성격도 그러하다. 자기 모순을 고치고 잘하려고 각오한 상태로 '정리만 된 자'가 있고, 아예 고쳐 버리고 '소각한 자'가 있고, 정리도 안 한 채 '그냥 사는 자'가 있다.

15. 소각이 안 되면, 때가 되면 또 나온다.

16. 휴거됐어도 '자기 육성, 자기 육의 못된 성격'을 완전히 고쳐서 소각시키지 않으면, 생활할 때 또 튀어나온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7. 주의 말에 절대 순종하지 않고 “예, 맞습니다.”라고만 하는 자는 '정리만 한 자'다. 고로 생활하다 보면 '자기 주관'대로 한다.

18. 주의 말에 토를 달고 자기 합리화 하는 자에게는 '주가 아는 비밀'을 말해 주지 않는다.

19. 믿고 '아멘' 하는 자에게는 “너는 내 말을 믿으니 말해 준다.” 하며 다 말해 준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자>는 모르는 자를 보고 “저 사람은 소경이다.” 한다. (반복) <머리>만 확실히 안다. <지체>는 머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모르면 <그 면의 소경>이니 육신이 '모르는 자'에게 끌려다니고 '자기 영광'을 뺏기고 산다. 주와 일체 되어 '주가 하는 말'을 믿어야 소경에서 벗어난다.

20. 주는 '그 일의 주인'이니, 직접 당해 봤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 알고 말하니, 그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다.

21. 영계에서 '육계의 숨긴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비밀의 사명자만 안다.

22. <영계>에 둔하면 <육계>에도 둔하다.

23. 지혜자가 누구냐.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같이 한 밥상에서 먹고 마셔도 모르느냐.

24. <소경들>은 눈으로 봐도 모르고, <영계의 눈을 뜬 자>는 그 육을 안 봐도 안다. ‘영’으로 보기 때문이다.

25. <육>이 ‘모르는 소경’이라서, 그 <영>을 불러서 “너도 모르느냐?” 하니, <영>은 모르기도 하고 알기도 했다. <육>이 ‘모르는 소경’이고, 더러는 <영>도 ‘모르는 소경’이니, 그 육에게는 ‘계시’를 못 해 준다.

26. 성령을 받았어도 - 진정 ‘자기 마음속’을 비우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물어야 - 가르쳐 준다.

27. 자기가 <인식>을 다르게 하고 있으면, 계시를 줘도 <자기 잘못된 인식>이 ‘소경 짓’을 하여 모른다.

28. 한번은 꿈에 산길을 가는데 <가는 길>이 넓었다. 고로 <산 너머 길>도 ‘이같이 계속 넓겠구나.’ 인식하고, 꿈에서 기도하며 물었다. 그러니 성령님도 “그래, 산 너머 길도 넓다.” 하셨다. 그런데 산을 넘어가 보니, 바로 길이 좁아졌다. <내 인식>에 ‘지금 가는 길이 넓으니, 앞으로 나오는 길도 넓겠구나.’ 하는 그릇된 생각에 차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 묻고 계시를 받으니, <계시>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인식이 그릇된 자>는 ‘삼위일체의 계시’를 받아도 계시가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인식>이 곧 ‘계시’가 된다. 고로 ‘현실’과 다르다. 그래서 ‘인식’을 바로 하고 ‘자기 속’을 비우라는 것이다.

29. 섭리사에서 어떤 일은 <100% 맞는 일>인데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했다. <머리, 주>만 하늘로부터 받고 아니, <지체>가 아니라고 하며 하기 싫어했어도 해 왔다. - 이는 <머리>가 생각하고 하려 하는데 <육신>이 부정하고 싫어한 것이다.

30. 어디까지 ‘인성’이냐. 기도하고 생각해도 ‘인성’이다. 잘 따지고 했어도 ‘인성’이다. 아예 자기 생각을 다 비웠을 때, 그 속에 성령이 주와 함께 임하여 행한 것이 ‘신성’이다. 신성으로 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실행된다.

31. 자연성전 <야심작>도 ‘인성’으로 하여 다섯 번 무너지고, ‘신성’으로 하여 여섯 번째 한 번에 쌓았다.

32. <성자 사랑의 집>도 5년 동안 ‘인성 설계’를 했다. 건물을 짓기 직전에서야 ‘신성 설계’가 왔다. <신성 설계>는 야심작 때와 같이 음성과 깨달음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였다. 왜 ‘시작하기 직전’에 왔을까? 다시 변동하지 못하게!! - 막바지에 준 것이다.

33. <계시>도 자기 것을 다 비우고 ‘신성하게’다. 나머지는 자기 주관이 들어간 것으로 자기 창고에서 꺼낸 것이다.

34. <주의 말>에 “아멘!” 해야 그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35. <몸통이 큰 자들>이 따지고 재면서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 <몸통이 큰 자들>이 누구냐. ‘오래된 자들’이다. ‘주와 일체 되지 못하고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36. <순종하지 않는 무지한 자>는 고통을 겪은 후에 안다. 그제야 체면상 말도 않고 “내가 모르고 속았구나.” 한다.

37. 무조건 믿으면 속는다.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지도하는 사람의 말은 잘 믿는다. 고로 잘못 말해도 그릇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고로 잘못됐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된다. - 오직 주와 일체다!

38. 한 사람이 전체를 못 본다.

39. 이제 <700선 휴거된 자들>이 많으니, 지도자들은 잘 인도하고 가르쳐야 된다.

40. 누가 <700선>이 됐는지, 머리는 안다. 삼위일체가 그를 통해 행하셨기 때문이다.

41. 그렇게도 <주가 말씀하는 대로 믿고, 주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주와 교통하던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휴거됐다. - 주와 생각이 일체 되어 자기 생각을 소각해 버렸기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고 휴거됐다.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42. <2016년 3.16 휴거 날 최고 정한 시간>까지 ‘각 사람의 마음·생각·정신·행동 상태’를 보았다. <극치의 순간>까지 다 보고, ‘휴거의 차원’을 결정했다.

43. 어떤 영은 원래 그날 휴거되지 못할 영이었다. 그런데 그날, 마치 목 탈 때 물 마시듯 마음도, 몸도, 사랑도 뒤집어져서 주와 일체 되었다. 주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했다. - 고로 그 <영>이 그 자리에서 신부 옷을 입고 휴거되어 황금성에 올랐고, 그 <육과 혼>은 기쁨으로 휴거 잔치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44. <300선 휴거>는 마치 시장에서 그 물건을 살 생각조차 안 했는데 갑자기 감동되어 지갑을 털어서 사듯이, ‘현장에서 감동되어 휴거를 결정하고 청산할 것들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45. 광장에서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었다. 아직 ‘결혼’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가 잘되어 생각이 바뀌면, 순간 ‘결혼’을 결정하고 ‘약혼’하게 된다. - 이것이 <휴거 300선>이다. 이와 같이 <휴거 300선>은 그 단계에서 결정하면 된다. 그 후부터는 ‘차원’이 많으니, 그때부터는 ‘행할 것들’도 많고 ‘쌓을 공적들’도 많다.

46. 저마다 매일 <휴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 어떤 일이고 관심이 없으면 항상 그 자리, 그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47. 전심으로 행해야 ‘근본이 변화’된다. 곧 ‘옛것을 소각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48. 변화되면, ‘없던 것’이 생긴다.

49. <건설>이다. <개발>이다.

50. 마른 땅을 1m 파고 또 파서 2m를 파니, 변화되어 ‘없던 샘’이 생기고, ‘물’도 나왔다. - 만사의 모든 것도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없던 것’이 생긴다.

51. <육신의 직책>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명칭’에 불과하다.

52. 운전하면, ‘운전사 명칭’이 주어진다.

53.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 ‘목회자 명칭’이 주어진다.

54. <육의 직책·직위·명예>와 상관없이 <휴거>는 ‘자기 행위’대로 이루어진다.

55. 이름도 잘 모르고 직위도 없는 평신도가 직위가 있는 자들보다 높이 휴거되기도 했다. - 왜? ‘휴거’에만 전념했기 때문이다.

56. 섭리사가 <휴거>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합당하게 갖춰서 행하니 ‘큰 물살’이 일어났고, 그 ‘큰 물살’에 따라서 그 위력으로 삼위일체가 주와 함께 ‘수만의 영들’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 휴거시켰다.

57. 민족 간에 ‘큰 것’의 수출이 결정되니, 그로 인해 ‘작은 물건’까지 수출이 결정된다. - 올해 3.16 날 휴거도 그러했다.
58. ‘큰 군함’이 대량으로 수출되니, 그에 따른 ‘작은 것들’도 같이 대량으로 수출이 결정된다. - 올해 3.16 날 휴거도 이같이 되었다.
59. 작년 3.16에는 몰라서 제대로 못 했다. 그러나 올해는 제대로 알고 준비했기에 ‘허다한 무리’가 휴거된 것이다.
60.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다.
61. 제대로 준비하니, 휴거도 제대로 됐다.
62. 큰 물살을 따라 그 위력으로 ‘허다한 무리’가 휴거됐다.
63. 빈손으로 야외에 나갔는데, 단체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 바람에 같이 먹고 마시게 된다. - 이같이 휴거된 자도 있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행하여 ‘휴거 차원’을 높이기다.
64. 어떤 자는 3.16 날 ‘자기 영’이 ‘자기 육’에게 휴거됐음을 알려 주며 보여 주었다. 혹은 ‘만물 계시’로 깨닫게 했다.
65. <사건의 사연과 의사>를 확실히 말하며 물어야, 그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
66. <보여 줘도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67. 3.16 날 휴거됐는가? - 어떤 사람은 ‘분위기’로 대강 알았고,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알았고, 어떤 사람은 ‘만물 계시’로 알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알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알았고, 어떤 사람은 신령하게 준비하여 육도 민감하게 깨닫고 알았다.
68.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 탄 것 같다. ‘내가 비행기를 탔나?’ 하게 된다. - 휴거도 그러하다. <육신>은 ‘내가 휴거됐나?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영>이 휴거되니 잘 모른다. <육>은 땅에서 휴거됐으니, 매일 확인하면서 휴거의 삶을 살아야 실감한다. 고로 ‘매일 확인’해라! 어떻게? ‘자기 삶’으로 확인해라. <휴거된 자>라면 ‘휴거의 삶’을 산다.
69. <땅의 성자>를 절대 믿고, <시대 말씀>을 믿고, <삼위일체>를 절대 유일신으로 믿고 사랑하며 일체 되어 사는 삶이 - 곧 ‘휴거의 삶’이다. - 이것은 ‘지식의 확인’이다.
70. 매일 혼으로 육으로 성령과 주와 교통하며 물어보기다.
71. 수백 번, 수천 번 물으면, 성령도 주도 ‘한 번’이라도 대답하니 답답하지 않다. 그런데 왜 안 하나.
72. 모르면 소경이다. <긴가민가 생각만 하고 추측만 하는 것>은 ‘정리’이고, <아예 아는 것>은 ‘소각, 청산’이다.

<2016년 5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73. 한 센터의 잠언도 다 받고 깨달아야, 겨우 한 개 깨달은 것이다.
74. <한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40~70가지의 음식’을 만들듯이, <한 가지 잠언>을 받은 데서 ‘수십 가지 잠언’이 나온다.
75. <두부 하나>를 가지고 ‘40가지의 음식’을 만들고, <쌀 하나>를 가지고 ‘100가지의 음식’을 만든다. - 잠언도 <한

개의 잠언>을 받은 데서 ‘그 센터에 해당되는 수십 가지의 잠언’이 나온다.

76. <눈 뜬 자>만 ‘소경’이 누구인지 안다.

77. <소경의 말>을 믿으니, 자기도 소경이 되어 따라간다. <머리>가 이를 보고 안타깝고 불쌍하여, 깨닫도록 ‘잠언’으로 말씀한다.

7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만 부르지 말고, <교육의 해>에 모두 제대로 배워라. 그리고 가르쳐라.

79. 가르치려거든, 배워라.

80. 꿈에는 ‘상징’으로 보인다. 직접 그 사람으로 안 보이고 ‘상징’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지적할 것을 지적하신다.

81. 모르면 속는다. 과거에도 속아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82. 누구나 ‘자기 목적’을 놓고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말한다.

83. <그 면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가 ‘그 면’으로는 안 쓴다.

84. <잘못된 인식>은 ‘병’이다. ‘고질병’이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지 않는다.

85.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 그 마음을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된다. 고로 말하게 된다. 사탄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고로 사탄인 줄 알게 된다. 악평자들도 ‘자기 주관’을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목적’을 못 이루니, 말한다. 고로 악평자임을 알게 된다.

86. <지체>를 <머리>로 알고 행하는 자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여, ‘소경’이 되어 다닌다.

87. <성령>은 ‘구원자’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 고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원자’를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다. <성령>은 ‘증거의 신’이다. 성령을 받고도 증거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 체험’만 한 자다.

88.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면, ‘성령’이 임한다.

89. <증거>해야 그것이 ‘씨’가 되어 ‘자기 변화’가 일어나 결실하여 얻는다.

90. <증거>하지 않으면, 끓인 물이 잠깐 뜨겁다가 곧 차가워지듯 한다.

91. 이 역사를 보아라. ‘삼위가 보낸 자 한 명’으로 시작되었다. ‘한 명’으로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 나갔겠느냐. - <증거>했기 때문이다. 모두 ‘증거’를 듣고 이 역사로 온 것이다.

92.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도 안 된다.

93. <복음>을 전하기다. <주>를 증거하기다. <복음>은 ‘시대 말씀’이다. <말씀>이 곧 ‘주’다. <시대 복음>으로 ‘주를 증거’하여 ‘주’를 확실히 알게 하기다.

94. 예수님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3년의 시간을 보면, 직접 ‘복음’을 얼마 전하지 못했다. 제자들도 ‘주’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

95. 예수님은 살아생전 계속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고, ‘증거’하라고 유언으로도 남기셨다. 증거해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96. <증거자>가 가장 크게 변화된다. <섭리사 안>에서 증거하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 증거하는 것이 크다. <섭리사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전초가 되었으니 오히려 증거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니 증거를 막고 거부한다. 고로 ‘증거’하여 알게 해야 된다. 증거해야 ‘섭리의 땅’이 커지고, ‘섭리사’가 확장된다. <세상>을 향해 크게 증거하는 것이 그리 크다.

97. <직책과 직위>는 ‘간판’이다. <직책과 직위보다 더 큰 것>은 ‘주와 일체 된 것’이다.

98. 어떤 사람은 ‘평신도’인데 ‘목사보다 위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 <신부 시대>에서는 ‘직책과 직위’보다 ‘주와 일체 된 직위’가 더 크기 때문이다. 주께 사명을 받고 행하는 자만 안다.

99. <육신>은 ‘직책’이 없어도 영계에 다니며 삼위와 주께 받은 말을 전하고 다니는 자들은 ‘영계에서는 큰 직위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하늘의 조서>를 담당하는 자들이며 <하늘의 비밀>을 담당하는 자들이다.

100. 모든 자들은 ‘개성체’다. ‘개성의 왕’이다. 고로 각자 자기 행위대로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을 가지고 개성대로 행하며 하늘 뜻 길을 간다. 단, 항상 ‘머리’와 교통하면서 행하기다.

101.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도 성자도 가담하지 않으신다. 고로 그는 ‘성자와 성령과 끊어진 자’요, 실상 ‘죽은 자’다.

102. <주와 연결되지 않은 자>는 실상 ‘죽은 자’다. ‘소경’이다. 몸의 각 지체를 보아라. 따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모든 지체>는 <뇌,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2016년 5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03. 주를 증거하려면, 먼저 ‘주’에 대해 알아야 된다.

104. 주에 대해 알려면, ‘성경’을 바로 보고 ‘시대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105. <성경>대로 ‘시대 역사’는 진행된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시는 일이다. 고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 ‘주’도 바로 알고 증거한다.

106. <주>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노정’을 증거하기다.

107. <삼위와 주가 함께 행한 일>, 곧 <때에 따라 일어난 일>, <아무도 못 하는 시대의 표적들>을 모두 모아 수집 가지로 증거하기다.

108. 성경을 보면, ‘주’가 오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가르쳐 주었으니, 찾아서 증거하기다.

109. <때>로 증거하기다. <시대>로 증거하기다. <태양>도 ‘때’가 되면 뜨고 진다. 이와 같이 <역사>도 ‘때’가 되면 ‘구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온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미루지 않고 행하셨다. 아는 자들만 알고 따른다.

110. 어느 시대든지 ‘모르는 자들’은 <구시대>에 남아 <구시대>에서 살았다. ‘새 시대의 때’를 증거하기다.

111.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

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마24:32-35)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다. 그 민족이 회복되면 <주>가 왔다는 것을 알라는 말이다. <때>를 알라는 말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증거하면서 말씀하셨다.

112. 이 시대도 ‘하늘이 보낸 자’가 각 나라에 가면, 그 민족에 ‘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민족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고, ‘각종 표적’과 ‘성경에 예언된 징조’가 일어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문제 되는 일들’도 삼위일체가 풀어 주셨다. 아는 자들은 모두 알도록 증거해 주어라. 그리함으로 모두 알고 증거해라. 왜 했는데도 증거하지 못하느냐. 모르는 자들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풀어지면, 믿는다. <증거자>는 이런 것을 증거해야 된다.

113.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시대 사명자’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증거해라. 조각조각 알고 있으니, 하나로 종합해라. 그때 그 나라에 ‘누가’가 있었느냐. 다른 자들은 갔어도 ‘징조’가 안 일어났다. 본 나라, 본 자는 증거하여라. ‘시대의 징조’를 보고 깨닫는다. 병어리가 되지 말아라.

114.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동방의 박사들은 ‘만물의 징조’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115. <구름같이 믿고 따르는 증인들>이 ‘증거 거리’다. 허다한 무리, 허다한 증인들이 봤다고 증거해라.

116. <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이 다 ‘증거 거리’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행사와 각종 행실’이다.

117. 하나님은 먼저 ‘시대 사명자’가 행하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육 있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 행하게 하신다. - 이것이 <증거>가 된다.

118. <시대 사명자>가 ‘삼위일체의 육적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가 태어난 땅>을 ‘새 역사의 성전’으로 삼으신다. - 월명동을 이같이 증거해라.

119. <구원자>는 ‘평화의 왕’으로서 온다. 고로 그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된다. 이 시대를 보아라. 그가 갔을 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가 오니 ‘평화의 개인, 평화의 민족, 평화의 세계’가 되었다.

120. <그릇된 자들>에게는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시대 사명자가 일으킨 징조’를 이용하여 ‘제 것’으로 삼는다.

121. <시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해라. 우리가 안 하면, 세상이 모두 가지고 가서 이용한다. 비유컨대, 주인이 수십 년 동안 ‘나무’를 키웠다. 그런데 어떤 자가 ‘그 나무’를 훔쳐서 ‘자기 집’을 지었다. 주인이 그곳에 안 가니, 자기가 ‘주인 노릇’ 하면서 산다. 그러나 ‘개인의 집’은 지어서 살되, ‘하나님 역사의 집’은 못 짓고 산다. 오히려 행위대로 ‘말씀 도둑’이 되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122. <잠언>으로 증거하기다. 하나님은 세상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오면 <잠언>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신다.

123. <구원자>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 십자가’를 지고 간다. 다른 자는 그 일도 못 하고, 예언도 못 이루고, 뜻도 못 이룬다.

124. 성경에 <성자가 계시하신 말씀>으로 증거해라.

125. 숨기면, 증거가 안 된다. 앞에서 말한 것들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 삼위께서 깨닫도록 역사하신다.

126. 글을 쓸 때도 획을 빼지 말고 정확히 써야 ‘올바른 글’이 되어, 보는 자들이 제대로 알고 그 글의 뜻을 깨닫는다.

이와 같이 증거할 때도 빠지 말고 증거해야 ‘올바른 증거’가 되어 듣는 자들이 확실히 안다.

127. 이미 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이 같은 증거’를 받고, 믿고 확신했다.

128. <증거>만이 ‘하나님의 섭리역사’가 더욱 확장되는 길이다.

129. 아직도 <증거할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 ‘증거’하지도 못하고 ‘신앙’도 약하다. - 고로 ‘휴거의 차원’도 계속 그 위치다.

130. 휴거됐어도 계속 ‘상위 급’으로 올라가야, ‘완벽한 휴거’를 이루어 영원히 삼위와 주와 헤어지지 않고 사랑하며 누리며 산다.

<2016년 5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31. 결혼했어도 이혼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휴거>도 ‘하늘과의 결혼’과 같다. 휴거된 후에 삼위와 주를 모시고 섬기며 사랑이 열렬해야 <완전한 휴거>를 이루어 영원히 휴거를 상실하지 않고, 삼위와 주와 헤어지지 않는다.

132. 이제부터는 ‘하겠다’ 말만 하고 마음만 먹고 계획만 하는 <정리의 삶>에서 벗어나라. 정리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133. 자기 할 일을 해서 없애 버려라. 삼위와 주를 모시고 사랑하는 생활의 사랑을 해라. 자기를 만들어 버려라. 그리함으로 <소각하는 삶>을 살아라.

134. <소각의 삶>을 살아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135. <변화>가 일어나야 ‘없던 것’이 생기고 ‘차원’이 높아진다.

136. <정리>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여건이 닥치면 또 방에 다 늘어놓듯, 그 같은 행위를 한다. 아예 없애고 소각하면, 방이 깨끗한 상태 그대로에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37. 산의 잡목과 잡풀만 베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게 되고 다시 산이 된다.

138. 큰 산을 뭉개어 평지로 만들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는 산이 되지 않는다. 이같이 머리에 서도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이같이 고칠 것을 아예 고치고, 이같이 행하여 ‘소각하는 삶’을 살아라.

139. 산을 다 뭉개고 거기에 월명동같이 만들면, 다시는 산이 되지 않는다. 너희도 ‘자기 생각, 행위’를 아예 온전히 만들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40. 아예 행할 것을 행해 버리고 자기를 만드는 것이 <소각>이다. 그러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부터는 ‘완전한 변화, 새로운 세계’다.

141. <자기에게 역사하시는 삼위일체>를 증거해라.

142. 증거하는 자들은 노련하게 배워라. 그리고 이미 삼위와 주와 함께 세상에 행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증거하되, ‘성령의 능력, 주의 능력’으로 하여라.

143. <전체>가 ‘두 증인’이 되어서 시대와 주를 증거해라. 시대 사명자가 증거한 것들이 많으니, 자꾸 영상을 틀어 보여 주어라. 시대와 주를 강하게 증거해라. 천둥 번개 치듯 증거해라.

144. <주>를 증거하는 만큼 ‘힘과 능력’이 오고 ‘주’와 일체 된다.

145. <증거>는 ‘시인’이다.

146. <증거>는 ‘실존’이다.

147. <증거>는 ‘현실’이다.

148.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증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음식을 다 먹고 없으니 모른다. 그 음식 먹고 건강해지고 살쫘다고 보여 주면서 증거하고, 그 음식 먹고 힘이 났다고 뛰고 달리면서 증거하는 것이다. <주 증거>도 그러하다.

149. <맛있는 음식>만 대접받아도 ‘맛있게 먹었다.’ 하며 증거하고 좋아하는데, <영원한 황금성>을 얻고도 증거하지 않고 자기 사명을 안 하는 자들이 많다. 모두 증거해라! 그래야 ‘주’도 ‘전능자’ 앞에 ‘그’를 증거해 준다.

150. 증거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느냐. 증거할 것들을 써서 줄 테니 배우고 증거해라. 또 이미 써서 썼으니 어서 배우고 증거해라.

151. 황금성 천국에 갔는데, ‘증거 면’에서 해당되는 것이 없는 영이 있었다. 이는 마치 ‘정원’은 있는데 ‘정원에 심을 나무’가 없는 것과 같다.

152. <주 앞에 두 증인이 행하는 것>을 바로 증거해 주어라. 혹여 <두 증인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흠 잡지 말고 ‘주’께 고해라. 그러면 ‘기술자’가 고쳐 준다.

153. 예쁘고 맛있는 자라도 말을 안 들으면, 안 예뻐 보이고 안 멋있어 보인다. 싫어진다.

154. <정리>만 하고 <소각>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그러한 여건이 닥치면, 또 방에 늘어놓는다. - <죄 회개>도 그러하다. ‘죄 정리’만 하지 말고, ‘죄 소각’을 해야 된다.

155. <자기만 아는 죄>가 있다. 그렇다고 스스로 회개하고 끝내면, 그 죄는 ‘자기 장부’에서만 없어지고 ‘스스로’만 기쁘다. 주께 고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주’는 그가 회개한 것을 모르니 인정하지 않고 ‘주의 장부’에는 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은 <정리>에 불과하다. 고로 계속 ‘죄인’이다. 주께 고하여 회개하면 ‘자기 장부’에서도 죄가 없어지고, ‘주의 장부와 하나님의 장부’에서도 죄가 없어진다. 고로 주와 같이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소각>이다. 소각 하니, 그때부터 깨끗하다. 고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156. 어떤 사람은 ‘자기 죄의 내용’을 알리기 곤란하니, 무작정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한다. 주께 다 고해야 완전히 소각된다. 주께 ‘자기 죄의 내용’을 고하며 회개하면, 주가 알고 용서해 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간구해 준다. 자기 죄를 주께 고해라. 그리함으로 주께 용서받고, 죄를 완전히 <소각>해라.

157. 체면 때문에 ‘말’로 고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는 마치 바닥 청소를 할 때 ‘마른 걸레로만 닦은 격’이다. 고로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 먼저는 쓸어 내고, 그다음에 ‘물걸레’로 닦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른 걸레’로 닦아야 된다. <물>은 ‘말씀’이며 ‘주’다. 먼저 ‘물걸레’로 닦듯 말씀을 듣고 <주>께 고하여 해결하고, 그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듯 <자기>가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다.

158.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해라!

159. 마음만 먹지 말고, 계획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 해라! 이제부터는 ‘소각의 삶’이다.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행하는 대로 진행된다.
2.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말씀>을 중시하여 ‘안 할 것’은 못 하게 하고 ‘할 것’은 하게 하면서 지시하며 다스리는 것이다.
3. 자기를 엄히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면, 그 위에 성령도 역사하여 주와 같이 도우신다.
4.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룰 때는 참고 견디고 수고해야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자체>는 ‘완전’하시니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노력해야 함이 없으시다. 그러나 <인간과 연결되는 일>이면, 참아 주고 견뎌 주고 절제해 주고수고해 주면서 갖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6. 인간도 <완성해 놓은 것>은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힘들고 울고 할 것이 없다.
7. 자기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성’해 놓으면, 자기 욕을 가지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
8. 집을 짓거나 공원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그로 인해 참고 견디고 심정 태우고 수고함이 있으나, ‘다 완성한 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 만사의 모든 것이 그러하고,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신앙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참고 견디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울면서 각종으로 겪을 것들이 많다. 그러다 ‘완성’하면 그런 일이 없다.
9. 영도 혼도 휴거되어 완성하면, ‘할 일을 다 한 자’로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 고로 슬픔, 고통, 어려움이 없게 된다.
10. 학문도, 운동도 다 배우고 나면 써먹기만 하면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완성’하여 차원 높은 데 거하면, 그때부터는 ‘각종으로 싸워야 할 것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을 것들’이 없어지고, 그만큼 편하게 쓰고 누린다.
11. <완성하기 전에 과정 중에 있는 자>만 그로 인해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노력하며 각종 것들을 겪는다.
12. 자기를 만들 때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만드는 것이다.
13. <휴거>도 ‘완성’한 만큼, 그로 인한 고통을 안 받게 된다.
14. 죄도 회개하여 처리하고 소각해 버리면, 그로 인한 고통을 안 받게 된다.
15. 사망권을 벗어나야 ‘사망권에 해당되는 것들’을 받지 않게 된다.
16. 이기려면, 행해라! 행해서 이겨야 된다.
17. <못하는 자> 때문에 <잘하는 자>까지도 고통을 받고 늦어진다.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18. 그러니 <잘하는 자>는 <못하는 자>를 관리하여 키우고 같이 하게 해 주어 주관권을 넘어오게 해라. 그러면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 놓으면 걱정이 덜 되듯 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하게 된다.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면 ‘적’이 된다.

2. 모르면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3.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과 적’이 된다.
4. 주의 뜻을 모르는 자는 ‘주의 적’이 된다.
5. 거칠어도, 별로 아름답지 않아도, 또 다른 것보다, 다른 부분보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핵’은 더 관심이 가고, 더 돋보이고, 더 감동되고, 더 눈이 가고, 더 선호하게 된다.
6. <핵>을 이용하여 그것을 가지고 ‘목적’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핵>은 다른 것보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부분보다, 다른 사람보다 못해도 더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더 중심하게 된다.
7. <신경>이 몸에 그렇게도 크게 영향을 주듯이, <생각>이 육뿐만 아니라 혼과 영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준다. <생각>이 육·혼·영의 운명을 좋게, 혹은 나쁘게 좌우시킨다.
8. <생각>이 약하면 패한다. <영>이 천국에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면, <생각>이 강해야 된다.
9. 모르면, 못 한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아 존재하고 있는데도, 모르니 못 한다.
10.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11.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신비함과 아름다움’이 좌우된다.
12.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진다.
13. <기쁜 일>도 잘못 생각하면 슬프고 화가 난다.
14. <환경 천국>에서 살아도 <마음 잔치>를 못 하면, 초상집이다.
15. <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에서 희망이 된 것>은 그것이 작아도 <이미 겪고 이룬 것>보다 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간다.
16. 가령 ‘큰 과일’을 먼저 주어 먹었다 하자. 그다음에 ‘작은 과일’을 보여 주면서 파티 때 먹도록 희망을 주었다. 파티 때 ‘이미 먹은 과일’도 놓고 ‘아직 안 먹은 과일’도 냈다. 모두 ‘아직 안 먹은 과일’에 동시에 손이 갔다. 이는 사람이 ‘이미 겪은 것’보다 ‘아직 안 겪은 희망’을 더 기대하고 크게 보기 때문이다. 고로 자꾸 ‘앞날의 희망’을 주어라. ‘이미 겪은 것’은 커도, 시간이 지나서 생각도 안 한다.
17. 끝났다 하면 ‘희망’도 끝났다 함이다. “진행 중이라 서둘러야 희망이다.” 하며 희망을 주어라.
18. <희망>을 주면, 얻고자 따라온다.
19. 악평자들도 비진리의 희망을 주며 따라오게 한다.
20. 사기꾼들은 ‘작게’ 투자해도 ‘많이’ 얻는다며 <희망>을 주니,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다.
21. 사기꾼들은 <희망>을 ‘절망하게 하는 말’로 하여 포기하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
22. <이미 먹은 것>보다 <아직 먹지 않은 것>이 더 ‘희망의 불’을 준다. 사람은 ‘겪은 것’은 이미 알고 있기에 ‘아직 겪지 않은 것’에 기대하며 희망을 갖는다.

23. <더 좋은 장소>에 가서 구경했어도, 사람들은 <아직 안 가 본 곳>에 더 가 보고 싶은 심리가 불탄다. 그만큼 ‘새 것’을 희망한다. 고로 ‘희망’을 주면서 따라오게 해라.

<2016년 6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돌이 커도 ‘형상’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 작아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신비하고 아름답고 값이 있다. 인생도 그러하다.
2. 돌도 사람도 작아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아름답고 신비하다.
3.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형상>을 만들게 된다.
4. 자연석이 만들어지듯, 집과 환경이 만들어지듯, 누구든지 자기를 만드는 대로 만들어진다.
5. 작더라도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귀하고 아름답고, 형상대로 신비한 가치가 있다.
6. 커도 ‘형상’이 없으면, 작아도 ‘형상’이 있는 것만 못하다.
7. 작더라도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8. 작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이 이루어졌으면 최고다.
9. 돌이나 지형의 최고 형상은 ‘사람 형상’이다. 그다음 최고 형상은 ‘사람 지체 형상’이다.
10. 돌이나 지형이 ‘사람 형상’이나 ‘사람 지체의 형상’을 갖췄으면 최고의 돌, 최고의 지형이다.
11. <인생 최고 형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은 형상’이다.
12. <자기 삶의 형상, 자기 영의 형상>을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대로 만들어진다.
13. 크기만 크다고 귀한 것이 아니다. 작아도 ‘형상’을 갖췄으면, 그냥 크기만 한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사람도 그러하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의 형상을 닮았느냐’에 따라 귀하고 아름답다.
14. 월명동 지형은 작아도 ‘형상’이 있어서, 큰 골짜기인 명악골, 중말거리, 앞섭골, 다리골 등 다른 골짜기보다 신비하고 아름답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시대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곳을 ‘시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궁’으로 삼으셨다. 그곳을 중심하여 ‘시대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하셨다.
15. <형상>이 있어도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가치와 아름다움과 신비함이 좌우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췄느냐, 악을 행함으로 <악의 형상>이 되었느냐, 우상을 섬겨 <우상의 형상>이 되었느냐에 따라 ‘그 삶과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16. <자기 사명과 행위>에 따라서 그에 따라 ‘상징적으로 형상’을 붙이는데 ‘새벽별, 달, 해’, 혹은 ‘산, 폭포수’, 혹은 ‘생명나무, 선실과’ 등을 붙인다.
17. 사람은 저마다 ‘기본 형상’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귀한 형상’으로 ‘만든 자들’이 있다.
18.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자기 영의 형체’가 만들어지는데, 최고 황금성 형체, 천국 형체, 낙원 형체, 지상영

계급 형제, 어둠에 속한 형제, 지옥 형제로 만들어진다.

19. <자기 생각과 행위>로 ‘자기 영의 형제’를 만든 대로, 그 영이 영원히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가서 살게 된다.

20. 작더라도 ‘좋은 형제’가 만들어져야 된다. 커도 형제가 없거나 나쁜 형제가 된다면 기쁨도, 희망도, 축복도, 사랑도 없다. <반복> <인생 최고 형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은 형상’이다. <자기 삶의 형상, 자기 생각과 행위의 형상, 자기 영의 형상>을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고,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라.

<2016년 6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역사>도 마치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크는 것’같이 처음에는 지극히 작지만 점점 커진다.

2.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따르는 자들’도 점점 커지면서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세계’로 가게 된다.

3. 그러나 뭐든지 ‘만들기까지, 완성할 때까지’는 고생된다.

4. 다 만들어지기 전, ‘과정 중’에는 고생이다.

5. 환경이든, 자기 자신이든, 생명이든 ‘다 만들어 놔야’ 그때부터 고생이 떠나가고, 보람이고 기쁨이고, 편하다.

6. 저마다 고생 안 하고 고통 없이 살려면, 고생돼도 어서 <자기>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어 버려라.

7. 시대 말씀 듣고 행하여 ‘<자기>를 만들어 버려야’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그때부터는 고생이 떠나가고 기쁘다.

8. 자기 나쁜 습관, 버릇, 나쁜 것들 다 고치고 ‘만들어 버려야’ 고생도 안 하고, 속도 안 썩고, 염려도 안 하게 된다.

9. 집을 다 짓고 만들면 ‘집으로 인한 고생’은 끝나 버리고, 그때부터는 편하게 쓰기만 하면 된다. 음식도 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먹고 즐기면 된다. 이와 같이 <자기>를 ‘휴거 완성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고생도 없고 걱정도 없다. 또한 <자기 영>도 ‘영원한 천국 황금성’이 보장되어 있으니, 마음이 놓이고 편하고 좋고, 영원한 기쁨이다.

10. 만드는 과정 중에는 ‘고생’이다.

11. 만들다가 말면 ‘사망’으로 떠나간다.

12. 자기도 생명도 만들다가 말면, 마치 바람이 불면 풍선이 혹 날아가듯 막을 수도 없이 어이없이 그 육도 영도 사망으로 날아가 버린다.

13. 자기를 만드는 대로 ‘그 영’이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황금성>으로 간다.

14. 지금은 ‘자기를 만드는 황금의 때’다. 어서 <자기>도 만들고, <생명>도 가르치고 키워라.

15. <자기>를 만들지 못하면 자꾸 반복되게 죄를 짓고, 자꾸 힘들고, 자꾸 세상으로 빠지면서 자기만 고통스럽다.

16. 월명동 자연성전도 <만들 때>는 힘들고 고생되고 몸부림쳤지만, <다 만들어 놓은 곳>은 더 이상 고생 없이, 힘든 것 없이 평생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쓰기만 하면 된다.

17. 자기 자신도, 교회도, 형제도 만들어라. <만들어 놓은 자, 만들어 놓은 곳>은 잘 관리하면서 쓰고, <만들지 않은 자, 만들지 않은 곳>은 부지런히 만들어라.

18. 모두 '온전한 휴거의 몸'으로 만들어 놓고 <휴거 700선>까지 완성해 놓으면, '최고 인생'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700선>을 넘어 계속 차원 높여 변화시키면 그 <영>이 '신의 모습'이 되어 살고, 그로 인해 <육>도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19. 세상에서도 '얻는 것'은 끝이 없다. 얻고 또 얻고, 좋은 것을 얻었으면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휴거의 영>도 그러하다. 그 차원이 끝이 없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까지 만들기다. <영원히 살 영>이니, 그 단계까지 만들기다.

20. <신의 단계>까지 커야 그 엄청난 '황금성 세계'를 다스리고, 큰 만큼 '영광'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된다.

21. 아직도 모르고 한탄하며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다. 혹은 그마저 감각을 잃고 자기 삶에 빠져 사는 자들이 많다. 전도하고 증거하여 '이 시대 역사'를 알려 주어야. 그래야 지상의 <육>은 '땅'에서 같이 '휴거 잔치'를 하고, <영>은 '천국'에서 같이 '혼인 잔치' 하며 새 시대를 만난 최고의 보람과 행복을 누린다.

22. 외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더욱더 시인하며 따르게 된다.

23.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경제 축복, 각종 축복'을 주신다.

<2016년 6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다.

2. <하기 싫을 때>는 언제인가? '힘이 없을 때'다.

3.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고 싶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하기 싫다.

4. <사랑>도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도 하고 싶고,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하기 싫다.

5. <신앙>도 '힘'이 있어야 그렇게도 하고 싶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도 하기 싫은 것이다.

6. 더울 때는 힘이 빠지니 그렇게도 일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저 시원하게 하고 싶을 뿐이다.

7. <삼위일체와 주를 향한 사랑>도 자기에게 '사랑의 힘'이 있어야 그렇게도 사랑을 하고 싶은 것이다.

8. <사랑의 힘, 사랑의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사랑하기 싫은 것이다.

9. <힘>이 없을 때는 아예 하고 싶지도 않고, 안 하면 손해가 가도 안 하는 것이 좋고 편하니 안 한다.

10. 하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11. 왜 <힘>이 없으면 그렇게도 하기 싫을까? <힘>은 '마음도, 생각도, 몸도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12. <힘>은 '하고 싶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다.

13. <힘>은 '존재의 생명력'이다. '생명의 원천'이다.

14. <힘>이 ‘생각 자체, 행함 자체’가 된다. <힘>이 있어야 생각도 하고 행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15. 나이 먹고 힘이 없으면, ‘영광의 일’도, ‘희망의 일’도, ‘기쁨의 일’도 그렇게도 하고 싶지 않다.
16.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틀어질 때, ‘힘’이 빠져서 그렇게도 하고 싶지 않다.
17. 놀고 쉬는 데 힘을 다 쓰니, ‘꼭 할 일’은 힘이 없어서 못 한다.
18. <힘>이 있어도 ‘써야 할 데’ 안 쓰고 ‘딛 데’ 쓰면, 거기에 힘이 다 빠져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된다.
19.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일’에 제대로 힘을 못 쓰는 자들이 많다. 왜? 힘을 ‘딛 데’ 쓰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 자기중심의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힘을 다 쓰니, 힘이 없어서 ‘신앙의 일, 자기 영을 위한 일, 휴거의 일’은 제대로 못 하는 것이다.
20. <힘>을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자. <시간>이 있어도 ‘딛 데’ 쓰면, 하늘과 사랑할 시간도 없고, 전도하고 관리할 시간도 없고, 휴거의 일을 할 시간도 없다.
21. <시간>이 - ‘일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아라. 다른 데 시간을 다 써서 시간이 없으면, 천하의 어느 누구라도 ‘자기 영을 위한 일, 시대의 중한 일’을 할 수가 없다.
22. <시간>이 1분밖에 없으면, 10년 동안 짝사랑하던 자가 “오늘 만나자!” 해도 못 만난다. 1분 가지고 뭘 하겠느냐. 통곡만 할 뿐이다.
23. <시간>이 없으면, ‘영광의 일’을 쥐도 못 한다.
24.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의 힘’을 써 놓고, <시간과 힘>이 없어서 ‘영원한 일’을 못 하면 얼마나 후회하겠느냐. 영원히 후회다.
25. <휴거>라는 ‘문자’에 빠지지 말아라. 휴거됐으면,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바로 ‘휴거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리함으로 ‘휴거의 차원’을 높여 ‘휴거를 완성’해야 된다.
26. 성자 떠나셨다고 힘 빠진 자들이 있느냐. <성자가 남기고 가신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이 곧 ‘성자’다. 이 말씀을 행해야! 불이 붙는다. 성자의 말씀 - “내 육을 나 성자로 보아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27.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 시간과 힘을 거의 다 쓰고, 나머지 시간과 힘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다른 것’을 한다. <직장 생활의 중심>을 ‘신앙’에 두어라. <직장>을 ‘신앙의 터전’으로 삼아라. <생각의 핵>을 ‘신앙’에 두고 하여라. <육>으로는 ‘경제’를 펴되, <생각의 핵>은 ‘신앙’에 뒀라. (이 잠언은 성령집회를 통해 비유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잊지 말고 기억해라.)
28. <자기 시간, 힘, 생각, 몸>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늘 일’에 투자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
29. <전적으로 하늘 일만 하는 자>는 시간도, 힘도, 생각도, 몸도 하루 종일 ‘하늘 일’에만 쓰니, ‘육 변화, 혼 변화, 영 변화’도 엄청나고 ‘얻는 것’도 엄청나다.
30. 하늘 일을 직업으로 삼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충성으로 전심으로 행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 전적으로 하늘 일을 하려거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차원 높여 충성으로 전적으로 하여라. 주가 너를 귀히 쓰겠다.

31. <신앙이 전업인 자>는 ‘차원’이 다르다.

32. 모두 다 전적으로 하늘 일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네 중심>에 ‘영원한 것’을 두어라. <네 중심>에 ‘주’를 두어라.

33. 하나님께서 6000년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성약 역사를 세우시고,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휴거 축복’을 주셨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든 힘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근본의 힘’을 찾아라!

<2016년 6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34. <자기 몸 안에 들어 있는 힘>이 자기를 생각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행하도록 감동시키고, 일어나게 하고, 뛰게 한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자 주의 역사’다.

35. <힘>을 ‘어디’에 쓰느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생각>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다.

36. <힘>은 쓸수록 더 생기고, 연단되어 더 솟아난다.

37. <시간>도 잘 쓸수록 시간을 쓰는 요령이 생기고, 시간을 쓰는 지혜가 생긴다. 그리함으로 4시간에 할 것을 2시간에 한다.

38. <육의 힘>이 생기려면 잘 먹고 운동해야 된다. 이와 같이 <영적인 힘>이 생기려면 영의 양식을 잘 먹고 기도해야 된다.

39. 자기 힘 + 삼위일체 역사의 힘이다.

40. <자기>에게 힘이 있는 만큼 <삼위일체>가 역사하실 때 힘을 받게 된다. 그릇이 작으면 적게 받고, 그릇이 크면 많이 받는 원리다.

41. <큰일>을 하려면, ‘큰 힘’을 받아야 된다.

42.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려면, ‘거대한 힘’을 받아야 된다.

43. <힘>은 ‘온전한 데, 영원한 데’ 귀히 써야 된다.

44. <힘을 쓸 때>는 무력으로 한 번에 확 쓰지 말고, 꾸준히 일할 것을 보고 써라. 그래야 오랫동안 힘을 쓴다.

45. 힘을 한 번에 확 쓰면, 마치 엔진이 과열되듯 된다.

46. 할 일이 있다고, 급하다고 무력으로 ‘시간과 힘’을 쓰면, 힘을 다 쏟아서 바닥이 나게 된다. 그때는 맥 빠지고, 기 빠지고, 졸고, 자고,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된다.

47. <육의 힘>이 있으려면 ‘정신과 생각의 힘’도 있어야 하지만, ‘육 자체의 힘’도 있어야 된다.

48. 금식을 하면 ‘육의 힘’은 약해진다. 하지만 ‘정신과 생각, 혼과 영의 힘’은 강해진다. 그러나 ‘육’은 힘들어서 할 일을 못 한다. 다만 <생각>이 영계에 가고, 깨닫는 것은 능히 한다. 고로 <육>도 잘 먹고 운동하여 힘을 보강하여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생각의 일, 혼과 영의 일’을 ‘육’을 통해 할 수 있다.

49. <하루에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때>는 ‘새벽’이다. 그때 일어나서 시동이 걸리면, ‘시간’도 최고로 많고 ‘힘’도 좋으니 많은 일을 한다. ‘새벽’은 <생각과 몸>도 최고로 강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쓰는 자는 ‘최고 힘이 강한 자’다.

50. 새벽에 힘을 내어 해야 된다. 이때부터 행하여 <일의 양>을 확 줄여 놓고, <큰일의 허리>를 확~ 꺾어 놔야 된다.

51. <새벽>에 ‘큰일의 허리’를 꺾어 놓고 <낮>에도 행하면, 해 지기 전에 다 한다.

52. <하루 중에서 힘도, 생각도, 몸도 약해지는 때>가 있다. ‘저녁’이다. 이때는 하루 종일 힘을 쓰고 나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때는 태양이 넘어가듯, 일을 매듭짓고 쉬어야 된다. 그리고 힘을 저장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게 된다.

53. <큰일> 하려면, ‘새벽 시간’을 써라.

54. 힘 쓰는 지혜, 시간 쓰는 지혜, 힘을 저장하는 지혜, 시간을 저장하는 지혜다.

55. <개미가 하는 일>을 인간이 아무리 도와도 인간의 힘이 모자라지 않듯이,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아무리 도와도 삼위의 힘이 모자라지 않다. 그러나 <개미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인간도 힘이 빠진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인간>을 쓰고 행하시니, 그 일이 잘 안 되면 힘이 빠지신다.

56. 모든 존재는 ‘힘’으로 빛나고 ‘힘’으로 존재한다. <힘>이 ‘존재의 생명’이요, 생명의 원천’이다.

57. <지구>도 ‘힘’으로 존재한다. 자체 힘, 상대 힘이다. 중력이 엄청나니, 떠서 돌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58. <우주>는 ‘중력의 세계’다.

59. <우주>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힘’으로 ‘중력’이 발생되어 존재한다.

60. 사람이 <목적>을 이루려면 ‘돈의 힘’을 쓰든지 ‘자기 힘’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된다. 이와 같이 <우주>도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한다.

61. <힘과 시간>이 없으면 ‘자기 목적’을 못 이룬다. ‘폭발적 역사’도 못 이룬다. <힘>이 없어서 문제다. 육의 힘이 없는지, 영의 힘이 없는지, 근본의 힘을 잃었는지 생각해라!

<2016년 6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62. 희망의 힘, 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이루고자 하는 힘이다.

63. 잡목과 가시나무와 돌들이 짝 절어 있는 산도 ‘개간을 할 때’는 모두 쳐내어 없애고 파내고 만들어서 거기에 콩도 심고, 각종 곡식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는다. 왜 고생돼도 행할까? -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누리려는 ‘희망의 힘’을 가지고 하게 된다.

64. 하나님께 묻기를 “이 시대 휴거 역사에 택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택합니까?” 했다. 하나님은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을 택한다.”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을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 주시면 ‘한 명’도 놓치지 말아라. 어린아이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잘 가르치고 만들어라.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 주신 생명>을 뺏기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내놓아라. 내 생명 어디 갔느냐.” 하신다.

65.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그 사람의 차원, 성품, 생각, 마음, 재능’도 보고 택하신다. 그에 해당되는 대로 택하신다. 고로 다 ‘한 곳’으로 택할 수 없다. 고로 ‘섭리역사에 오는 자들’이 그만큼 드물다. 고로 ‘섭리역사에 오는 자들’이 귀하다는 것이다. 길러 봐라! 얼마나 인물이 되고, 다른 자가 되는지 깨닫고 행해라.

66. <그 사람의 차원, 기술, 소질, 재질, 능력, 나이> 보고도 택하신다. 갖추면, ‘새 역사’로 택하신다.

67. 각자의 개성대로 택하신다.

68. 모두 다 ‘왕’이 될 수 없다. 각자 <자기 재능과 개성>대로다.

69. 모두 다 ‘같은 지체’가 될 수 없다. 고로 하나님은 <개성>대로 ‘거기에 합당한 자’를 택하신다. 각종으로 택하여 구원하신다.

70. <인간의 천 마디 말>에 <하나님>은 ‘한 마디’로 대답하신다. <그 한 마디 속>에 ‘천 가지 말’이 들어 있다. 그 말은 “이와 같이 각종 센터마다 이려하다.” 함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기다린 새 역사인데, 왜 다 안 오지?” 한다. 그러나 다 올 수도 없다. ‘자격, 성품, 성분’을 보고 택하기 때문이다. ‘신부 자격자’만 택하여 오게 했다. 고로 섭리사에 오는 자들을 귀히 대하고 확인하고, 끝까지 키워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부족해도, 웃겨도, 볼품없어도, 인물 없어도, 배움 없어도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고 키워 봐라. 과거에 ‘인물’도 ‘배움’도 없는 자들을 키웠더니 ‘지혜자’가 되어 귀히 쓰이고 있다. - 이를 깨닫고 끝까지 키워라.

<2016년 6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71. <육의 힘>을 받으려면 잘 먹고, 쉬고, 운동하면서 관리해야 된다. <영적 힘>을 받으려면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삼위와 주와 교통하며 대화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하고, 관리하고, 증거하고, 찬양과 예술로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음식과 같이 ‘영적인 신앙의 양식’도 수백, 수천 가지다.

72. <주를 따르는 자들의 근본의 힘>이 무엇인가? 무엇이 ‘세상 어려움, 핍박, 환난’ 중에도 힘을 주는가? <아는 힘>이다. ‘진리’를 아는 힘, 곧 ‘주’를 아는 힘이다.

73. <힘>이 없을 때는 그렇게도 하기 싫다. 그렇다면 ‘주를 따르는 자들’은 언제 힘이 제일 많이 빠지는가? 뛰다가 지쳐서 힘들기도 하고, 형제와 부딪혀서 힘들기도 하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전도하고 관리하는 생명이 말을 안 들을 때 힘들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힘들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없어도 힘이 없을 때가 있다. <근본의 힘>을 잃었을 때다. 곧 <진리의 힘>을 잃었을 때다. <진리의 위대함, 시대 말씀의 위대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말’로 끝나고 ‘심정’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74. <섭리역사>는 ‘시대 말씀 하나’로 시작했다.

75. <시대 구원자>는 ‘시대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섭리역사’를 세웠고 이끌어 왔고 발전시켜 왔다.

76. <이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시대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자’가 맞다고 시인하며 따랐다.

77. <섭리역사>는 ‘시대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변성해 왔다.

78.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79.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시대 생명들 안에 거했다. 곧 ‘삼위가 보낸 구원자’다.

80. <말씀>은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성자 주다. 하나님의 역사다. 생명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81. 성자 떠나신 이후, 휴거 이후, 역시 <말씀>으로 시대 신부들에게 ‘생기와 힘’을 주셨다. - 곧 “<성자의 육>을 ‘성자’로 보아라. <휴거의 삶>을 살면서 ‘휴거의 차원’을 높여라.”였다. 이 <말씀>이 ‘힘’이다. ‘능력’이다. ‘권세’다. 그런데 <말씀>이 ‘말’로 끝나니, 힘이 빠져 주저앉는 것이다.

82. 섭리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어도, 휴거됐어도 <다음 단계>로 차원 높여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완성'한다. 고로 '양식'이 필요하다. 그 양식은 '말씀'이다.

83. 아모스 8장 11-13절을 기억해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84. <구시대>는 아무리 화려해도 '말씀'이 없어서 '힘'이 없다. 고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새 말씀'이 없으니 비틀거린다. <새 시대>는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힘'이 차고 넘친다. 그 힘으로 새 역사를 뛰고 달리며 희망에 차서 끌고 간다.

85.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말씀>이 '최고의 힘'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인생 태어나고 사는 목적'을 알게 되고, '주'를 알게 되어 구원과 휴거를 이룬다.

86. <말씀>이 '존재의 생명력'이며 '생명의 원천'이다.

87. <증거의 불>은 '주'를 지식이 아닌 행실로 알 때, '시대 복음'을 확실히 시인하고 깨달았을 때, 활활 타오르게 된다.

88. <말씀>이 '힘'이다! '불'이다! 이것이 '너의 정신'에 깊이 박혀 - 너를 움직이게 하고, 열나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행하게 하고, 뛰게 하고, 날게 한다.

89. <진리의 성령>을 받아라! 내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리라! 내가 외치고 증거하리라!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90.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야' 신이 된다.

91. <새 시대 새 말씀>이 '최고 힘'이며 '능력과 권세'다! 그 말씀으로 세상 사람도, 만물도, 시대도 다스린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재창조'한다.

92. <구시대의 해>가 지면서,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해 때에 따라 '시대 구원자'를 보내서 키우셨다.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연단받고 준비하게 하셨다.

93. 시대 구원자는 '시대 말씀'을 받고 외치며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펴 왔다.

94. <성약의 새 말씀>은 주로 '월명동'과 '대둔산'에서 받았다. 전능하신 성자는 시대 구원자를 매일 끊임없이 가르치셨다. 기성 교회에 다니며 1960년부터 '기본 말씀'을 받았고, 1965년부터 산속에 가서 성경을 보고 깊은 기도를 하며 '차원 높은 시대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1977년부터 '그동안 받은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도표와 그림>으로 제작했다. 성자는 '도표와 그림'에 맞게 시대 말씀을 잘 설명하도록 지도하셨고, 성령님은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늘 가르치셨다. <육의 음식>은 아무리 잘 저장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는다. 그러나 <영의 양식>인 '시대 말씀'은 '뇌'에 저장하여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 - 외칠수록, 행할수록 빛난다. 지금도 '시대 구원자가 말씀을 받은 성지 땅'에 오면, 말씀의 주인공을 따라서 모두 각자 합당한 대로 '말씀'을 받는다.

95. 1978년 5월 23일까지 시대 말씀을 받고 외칠 준비를 다 하고 부모님께 인사하고 '도표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곳인 월명동>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 원래는 <시골>에서 전하기 시작하려 했는데, 하나님도 성자도 <발판이 되는 서울>로 가라 하셨다. 서울로 가는 길에 일주일 동안 배방산에서 기도하고, <서울>에 도착하여 1978년 6월 1일부터 시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96. <성삼위가 주시는 새 시대 새 말씀의 내용>은 ‘시대가 기다리는 재림의 말씀’이다. ‘구원과 휴거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를 말씀’으로서 ‘당세뿐 아니라 1000년 동안 힘을 주는 최고의 힘’이다. 그 이상의 힘은 없다!

97. 이 시대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 목적을 이루는 말씀>이다. <가다리는 재림과 휴거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이다. 최고의 힘을 주는 말씀이다! 그 이상은 없다.

98.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말씀의 힘’을 주셨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말씀의 힘’을 주셨다. 그 말씀의 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힘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겠느냐.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신의 힘>을 받았다.

99. <이 시대 성약역사 때>는 ‘시대 구원자’를 통해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게 하는 사랑의 말씀의 힘’을 주셨다. 이 말씀으로 ‘상상도 못 하는 힘’을 받게 한다. 그러나 역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해야 그로 인해 ‘엄청난 힘과 권세’를 받게 된다.

100. <아무리 엄청나고 위대한 힘>이라도 제대로 외치면서 써야 ‘자기’에게도, ‘상대’에게도, ‘이 시대’에도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101. <새 시대 새 말씀을 외치며 증거한 섭리역사>가 이제 38주년을 맞았다. - <섭리사 최고 성장기 때> ‘시대 구원자’가 외국에서 돌아와서 4년 동안 말씀을 주며 ‘질서’를 잡아 주었다. 또, ‘키운 성령의 사역자’를 통해 인봉의 말씀을 주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고의 휴거 말씀’으로 최고로 키우고 단장시켜 2015년 3월 16일에 휴거시켰다.

102. 모두에게 ‘힘’이 있다. 그 힘은 ‘근본의 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시간>도 안 쓰면 무용지물이다. <진리의 힘>도 그러하다. 안 쓰면 무용지물이다. 행하고 외치고 증거하면서 써야 육도, 혼도, 영도, 생명들도, 역사도 변화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변성한다. 변창한다.

103. <시대 말씀의 힘과 에너지>를 각종으로 합당하게 써라!

104. 어떤 사람은 <시대 말씀>을 ‘육적’으로 쓰고 ‘자기 기회’로 쓴다. 그러면 ‘육’으로 끝난다. 그것은 ‘삼위의 역사’도 ‘목적’도 아니니, 삼위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자기 육만 살피우니 ‘육의 것’으로 허무하게 끝난다.

105. <시대 말씀의 힘>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원하는 대로 합당하게 써라! 그러면 쓰는 만큼 ‘힘과 능력과 권세’가 온다.

106. <새 시대 말씀의 힘과 권세>로 성경을 이룬다. 세상을 이긴다. 어려움을 이긴다. 환난, 핍박을 이긴다. 이단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참역사를 알게 된다. 자신을 구원할 자를 알고, 자신도 생명들도 구원하고 휴거시킨다. 시대를 다스린다. 희망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한다. 하나님의 한을 푼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영원히 누린다.

<2016년 6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07. <힘> 빼면 ‘느낌’이 없다.

108. <힘>이 있어야 ‘그에 해당되는 느낌’이 있다.

109. <힘> 하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자이시다. 삼위일체는 ‘힘’으로 존재하신다. ‘전능한 힘’이다. 태양 같

은 힘으로 존재하시고, 우주의 중력같이 존재하신다. 그 힘으로 ‘우주와 지구, 영계’를 다 다스리신다. 삼위는 그 힘을 ‘말씀’으로 주신다. 그리함으로 ‘사랑의 힘’까지 받게 하신다. 고로 인생들이 삼위와 일체 되어 ‘그 말씀’을 받으면 ‘신의 능력, 신의 힘’을 받게 된다. - 그 힘을 받아라!

110. 삼위일체는 ‘바닷물’같이 힘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삼위와 일체 될 때, ‘그 엄청난 힘’을 끝없이 받고 쓰게 된다. 육신이 늙기 전에, 때가 다 가기 전에 어서 ‘그 힘’을 받고 빨리 행해라! 때 지나면 끝난다. - 여호와께서 주를 통해 외치신다.

111. 모든 존재물은 ‘힘’으로 존재한다. 태양도 ‘힘’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하루의 태양>도 저서 ‘열의 힘’이 없다. 고로 때 지나기 전에 어서 ‘근본의 힘’을 받고 행하라는 것이다.

112. <육>도 ‘힘’으로 존재하고, <혼과 영>도 ‘힘’으로 존재한다. 꿈에 보아라. 혼도 영도 힘이 없으면 패하고, 힘이 있으면 승리한다.

113. <비행기>는 ‘자체 힘’과 ‘중력’을 이용하여 빨리 다닌다. <영>도 ‘영의 힘’과 ‘존재하는 영의 세계 힘’을 이용하여 빨리 다닌다. <차>도 ‘마력’이 있으면 빨리 달린다. <사람>도 ‘힘’이다. ‘육과 영’에서 힘이 온다. 근본의 힘은 ‘삼위일체와 주’와 일체 돼야 온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는 데서 온다. <주>도 그 힘을 받아서 어린 나이 때부터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21년 동안 견디고,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죽음의 고비를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114. <휴거된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힘’과 연결되어 천국에서도 존재한다.

115. <바윗덩이>는 ‘무게’가 엄청나다. 그만큼 ‘힘’도 엄청나다. 이와 같이 <사명의 무게>도 엄청나다. 그만큼 ‘힘’도 엄청나다.

116. <모래>나 <작은 돌들>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도, <바위>는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명>도 그러하다. <사명>만큼 ‘바윗덩이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117. 화장품도 <성분과 질>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

118. 약도 <성분과 질>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

119. 보약도 음식도 <성분과 질>에 따라 ‘효력’이 다르다.

120. 차도 기계도 ‘그에 따른 힘’을 가지고 있다. 크게 만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니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크게 행하려면 ‘큰 힘’이 들어간다.

121. 병들거나 고장 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죄를 지어 병들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도 못 받고, 힘을 못 쓴다.

122. 타락과 불법에 시간을 쓰고 힘을 뺏기니, 그 영이 힘이 없고 약하다. 고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큰일’을 안 맡긴다.

123. <시대 말씀>이 ‘최고의 힘’이다. 움직이게 하는 힘, 뛰게 하는 힘, 날게 하는 힘, 이기게 하는 힘이다. 고로 ‘말씀을 외치는 자의 책임’이 최고로 크다!

124. <똑같은 위력의 말씀>을 줘도 어떤 교회는 영적 힘, 육적 힘, 정신의 힘을 받아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체적 신앙’을 일으키고, 참지 못해 복음을 전하여 ‘생명들을 구원’해 온다.

125. <엄청난 힘을 가진 시대 말씀>,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힘을 가진 시대 말씀>을 전하는데도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제대로 못 하니, 듣는 자들이 ‘맛’이 없어서 잘 안 먹고, 충격도 안 일어나고, 영양을 못 받아서 기쁨도 흥분도 없고, 말씀을 듣고도 힘을 못 쓴다. 교역자들도,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위대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외치고, 증거하고, 감동시키고, 충격을 일으키고, 심정을 주고, 신유의 역사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도 일으켜야 된다.

126. <시대 말씀의 힘>을 받아라! 이 힘은 ‘신의 힘’이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그 힘을 가지고 행할 때 ‘신’처럼 행한다. 성령이 오셔도 ‘진리’를 가지고 오신다. <말씀 없는 성령>은 ‘힘’이 없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증거의 성령’이다.

127. 시대 구원자가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 조은이는 눈앞이 캄캄했다. 주의 신부들은 모두 실의에 빠져 있고, 자신도 계속 억울함을 당하여 쓰러져 있었고, 섭리인들도 지도자들도 모두 힘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였다. 어지러운 시국이었다. 그때 거의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둔산 지도자 모임에 참여했고, 선생이 시범으로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때 화면으로 주가 ‘번개 치고 벼락 치듯 하는 말씀’을 듣고, 순간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세 번이나 아주 강력하고 뜨겁게 떨어지면서, ‘이거야! 주가 이렇게 하셨지! 그 확신, 그 진실...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외치면 되지!’ 하고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날 성령이 거부할 수 없이 뜨겁게 감동시켜 조은이에게 불이 붙었고, 조은이 먼저 회개하며 외쳤다. 이에 지도자들도 모두 회개하며 “신부들이 하면 된다! 제자들이 하면 된다!” 하고 뜨거운 불을 받고 일어났다. 그리함으로 <최고 환난기>에 ‘힘’을 받고 일어났다. 그때 이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힘으로 환난과 핍박과 섭리사 무덤기간을 이겼다. 2013년부터 성자는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급한 소리를 하였고, 그 ‘힘’을 가지고 모두 ‘신부 단장’을 하도록 시키셨다. 그리고 극적으로 ‘마지막 준비’를 시키시고,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성경 말씀대로 2015년 3월 16일 성자가 이 땅에 육신 쓰고 오신 날, 구원자가 태어난 날을 <휴거 날>로 정하시고 ‘준비된 자들’을 휴거시켜 같이 떠나셨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128. <위대한 진리의 힘>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외쳐라!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2. <인간>은 원 존재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삼위일체’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 같은 내적, 외적 형상>을 가지고 <인간 같은 지체의 구조>를 가지고 계시되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적’으로 행하신다.
4. 사람은 ‘겉모습, 겉 지체, 겉 세계의 모양과 형상’만 아름답게 보고 감탄하며 좋아한다.
5. <겉모습, 겉 지체>가 아름답고 신비한 것같이, <내부 속 지체>도 그 모양과 형상이 아름답고 신비하다.
6. 심장, 신장, 간장, 위장, 뇌, 눈 속, 귀 속, 입 속 모두, 하나님은 ‘얼굴’ 못지않게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7. <속 지체>는 ‘겉 지체’가 기능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겉 지체와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아름다움이 있고, 겉 지체보다 더 신비한 작용을 한다.
8. <지구>도 ‘속’을 보면 정말 신비하다. 하나님은 신비한 구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9. <겉>보다 ‘뇌 속, 눈 속, 귀 속, 입 속’ 등 <속>을 보고 <작용하는 것>을 보면 그리도 아름답고 신비하다.
10. 사람들은 <눈·코·귀·입 모양>을 보면서 “모양이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한다. 그러나 <그 속의 모양과 형상>은 더 아름답고 신비하다는 생각을 못 한다. - <겉과 속>은 ‘한 틀’이니, 창조주는 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11. 가령 아름다운 집이 있다 하자. <겉>만 아름답게 만들었겠으나. <그 속의 방, 응접실, 부엌, 화장실, 정원> 모두 겉 못지않게 아름답게 만든 것이다.
12. 인간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겉 지체의 모양>과 같이 <내부 지체의 모양>도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어떤 지체는 <겉>보다 <속>을 더 사용하게 하였고, 어떤 지체는 <겉>은 모양만 있고, <속>에서 기능을 하고 사용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셨다. <겉 지체>는 <속 지체>에 비해 ‘기능’이 적다. 고로 <속 지체>를 보고서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깨닫고, 창조주 앞에 기뻐 감사 감격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13. <뇌 속>은 ‘머리 겉모양’보다 더 신비하고, 신비한 기능을 한다.
14. <인간의 모양과 형상>도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그 기능>도 그렇게 아름답고 신비하다.
15. <사람 몸의 각 지체>가 기능을 하며 작동하듯이, <우주 만물>도 자동으로 기능을 하며 작동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16. <인간>만 아름답게 만들고 <인간이 보는 만물들>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다면, 만족이 없다. 고로 하나님은 <수백만 가지의 만물들>을 극치로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17. 시계도 ‘겉모양’이 참 아름답고 예쁘다. 그러나 ‘속’을 보면 더 신비하고, ‘작동하는 것’도 ‘기능’도 신비하다. <시계 속의 기능과 작동하는 것>이 신비하니, 결국 ‘속 보이는 시계’를 만들어 보게 했다.
18. 하나님은 ‘인간’도 그렇게 창조하셨다. <사람의 겉 지체>만 팔방미인이 아니다. <속 지체의 모양과 기능>을 보면 팔방미인이다. 이를 깨닫고 써라. 깨닫고 아는 대로 더 귀히, 더 많이 활용한다.
19. 모르는 자들은 <화산이 폭발하여 나온 용암>을 보고 “아름답다 신비하다.” 하며 거기서만 보고 즐긴다. 더 올라가서 <속>을 보아라. 용암이 펄펄 끓고 있고, 굳어진 곳은 천연 동굴이 되어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다. 이와 같이 <겉 세계, 육의 세계>보다 <속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겉 세계의 사건>보다 <속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아라. 그래야 깨닫고 행하여 유익을 보고 영원한 보람을 얻게 된다.
20. 육적인 자들은 ‘겉’에서만 기뻐하고 흥분되어 살아간다. 후에 깨닫고 탄식한다.
21. <육계>도 <영계>도 깨닫고 살아라.
22. 어느 시대든지 <겉 세계>에 ‘구시대 기성인’이 산다. <속 세계>에 ‘새 시대 사람들’이 산다. <기성>은 ‘화산이 터져 흐르는 용암’을 보고 기뻐하며 살고 있고, <새 시대>는 ‘속에서 끓는 용암’과 ‘화산이 터져서 만들어진 천연 동굴’을 보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 <속을 본 자>는 ‘겉’은 이미 거쳐 다 본 것이다.
23. <구시대인들>은 해변에서 ‘캐주얼 차림’을 한 자를 보고 “으앗! 아름답다.” 하고, <새 시대인들>은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자를 보고 “으앗! 아름답다.” 한다. <구시대>는 다 안 보고서 안다고 하며 주장한다. <새 시대>는 다 보고서 주장한다. 그러니 <구시대>가 <새 시대>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신부 역사>는 ‘자녀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과거 구시대>는 예상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세계이지만, <새 시대>는 직접 보고 아는 세계다. <구시대>는 기다리고 있고, <새 시대>는 맞고 살고 보고 믿으니 ‘땅과 하늘’ 같은 차이다. 증거해라!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을 두고 행한 자>는 ‘계획적’으로 행했지만, 이것을 모르고 보면 ‘우연’으로 그리되었다고 생각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깨닫고 행하도록 ‘계획적’으로 역사하셨건만, 이것을 모르면 ‘우연’이라고 생각한

다.

3.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장단점’과 연결시켜 보고, ‘타인’과 연결시켜 보아라. 그러면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교훈’이며 ‘계시’이며 ‘깨닫게 해 주는 것들’이다.

4. <자기 스스로 행한 일과 보고 들은 것을 연관시켜 깨닫는 것>이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시>가 있다.

5. 자기 장단점을 모를 때는 스스로 깨닫고 행하든지, 계시에 의해서 깨닫고 행하면, 그것이 ‘귀하고 귀한 계시’다.

6. <계시의 목적>은 ‘모르는 것들을 알려 주고 깨닫게 하여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고로 스스로 깨닫고 행하든지, 계시를 받아 깨닫고 행하든지, 알고 깨닫고 행하면 된다.

7. 삼위일체는 스스로 깨닫게도 역사하신다. 이것도 ‘계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예 ‘지혜’를 주시어 스스로 깨닫고 행하게 하기도 하신다.

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양하게’ 목적을 이루신다.

10. 계시를 의심하거나 잘 인 믿는 자나, 혹은 계시를 믿어도 분별 못 하는 자는 스스로 깨닫게 역사하신다. - 이는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은 믿기 때문이다.

11. 집중해서 보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일 수밖에 없고, 집중해서 생각하면 ‘잊은 것’이나 ‘평소에 못 보던 것’도 생각나 볼 수밖에 없다.

12. 눈을 감았든지 떴든지 ‘찾던 것’을 찾았으면, 목적을 이룬 것이다.

13. <목적>이 중하다.

14. <계시를 받고 안 것>과 <스스로 노력하여 깨닫고 안 것>은 모두 자기에게 중하다.

15. <계시>를 받아서 깨닫고 행했든지, 자기가 <노력>해서 깨닫고 행했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신다. 고로 어떤 방향으로든 깨닫고 행하여 삼위가 원하시는 것을 이뤘다면, 뜻을 펴고 목적을 이뤘으니 좋아하신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든 ‘온전히 알기’를 원하신다.

16. 삼위가 원하시는 일을 ‘가르쳐 줘서’ 알고 행했어도 기뻐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행했어도 기뻐하신다.

17. 인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 행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니 역사하신다.

18. 행했으면, 기적이다.

19. 스스로 깨닫고 행했든지, 계시 받고 행했든지, 누가 가르쳐 줘서 행했든지, 행했으면 ‘기적’이다! ‘목적 달성’이다!

20. 어떻게 해서라도 <목적>을 알고 참여하여 행했으니, 성공한 것이다!

21.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이루려 하는데 ‘할 자’가 못 깨달아서 못 했다면, ‘다른 자’를 깨닫게 하여 그를 통해 기어코 행하신다.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건물>도 <환경>도 쓰면 더러워진다. 안 쓰면 깨끗하다. 그렇다고 안 쓰고 사는 것이 낫겠느냐. 쓰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낫겠느냐.
2. <인생들>도 그러하다. 쓰면 '청소 거리'가 많다. 하지만 쓸수록 얻게 된다.
3. <자기 생각>도 <몸>도 쓰다 보면,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안 좋은 행위도 하게 된다. 고로 '회개 거리'가 생긴다. 그렇다고 안 쓰고 가만히 두겠느냐. 자꾸 써라. 좋게 써라. 더러우면 회개로 청소하면서 써라. 생각도 몸도 써야 얻게 된다.
4. <지구>도 안 쓰면 깨끗하다. 자꾸 쓰니 더러워진다. 그래도 하나님은 쓰신다. '생명'을 위해서다.
5. <자기 인생>도 쓰면 더러워진다. 안 쓰면 깨끗하다. 그러나 써야 된다. 쓰다가 '각종 문제'가 생겨도, 써야 존재시킨다.
6. 먹으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안 먹을 수 없는 것이다.
7. <생활>하면 '생활 쓰레기'가 나오듯, <신앙생활>을 하면 '그로 인한 문제'가 나온다. 그 대신 '영원한 세계'를 얻는다.
8. 월명동을 개발하니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생겼다. 그러나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
9.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여라!
10. 인간은 얻으려면, 얻은 만큼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하나의 쓰레기다. 치우면서 해라. 그러면 '자기 것'이 생긴다.
11. 일하면 일로 인해 얻어서 좋기도 하지만, '문제'도 같이 온다. 그렇다고 안 하려느냐.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기다.
12. <희망>이 있으면 고생해도 가는 것이다.
13. <희망>이 없는데 고생한다면, 가지 말고 돌이켜라.
14. <성자 주>와 동행하면, 다 '희망의 길'이다.
15. 관리자도 지도자도 사명자도 '자기 주관권 이상'은 안 보이고, 손이 안 닿는다.
16.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17.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저마다 행해야 '희망'이 있다.
18. <목적>을 이루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목적>을 이루면, 그제야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 얻고, 그로 인해 또 '다음 목적'을 향해 행하게 된다.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알았으면 순간 큰일을 했을 텐데, 모르니 그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지루하게 보낸다.
2. 일이 앞에서 발에 걸려도, 모르니 할 일을 발로 차고 지나간다.
3. 어떤 것은 '생각났을 때 왔던 길로 다시 가서 하고 와야 될 일'도 있다. 그러나 그 때가 지났으니 '다른 일'로 생각

이 밀려나 세월이 가도 모르고 끝나게 된다.

4. 생각났을 때, <할 일>이라면 '미리'라도 해 놔야 된다.

5. <순간 했으면 될 일>인데, 한 세월이 가서 강 건너로 갔으니 못 한다.

6. 찾아라! 찾는 자만 찾는다.

7. 구해라! 구하는 자가 찾는다.

8. 구하고 찾아라! 자세히 구하고 찾아라.

9. <일의 낙, 일의 흥분>이다. 그 일은 '하나의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다. 고로 <일의 멋, 일의 맛, 일의 웅장함과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해야 된다.

10. 일을 순서 있게 질서 있게 하되 연구하면서 차원 높여서 해야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흥분도 되어 더 잘한다.

11. <육적 사랑>만 기쁘고 좋아 미치고 흥분되는 것이 아니다. 기쁨과 흥분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건물을 짓고, 자기 집을 멋있게 짓고, 환경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전도하여 생명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생명을 관리하고, 말씀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과일나무를 심고 동산을 가꾸고, 산을 오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 마음도 환경도 다 천국이고, 기쁨이며 흥분이다.

12. 자기 건강을 살피고, 몸을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기다. 그러나 이것은 '공짜'로는 안 된다. 행해야 된다.

13. 누구나 산을 넘으며 행하기다. 겪는 것은 기본이다. 때로는 고생도 한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이지 거리는 같다.

14. 너만 겪고 고생하고 산을 넘어 온 것이 아니다. 성공한 자들도 겪고 고생하면서 성공의 산을 넘어 왔다.

15. 어려도 겪고 당해 봐야 된다.

16. <생각>을 잘못하면 고생한다. 빗나가서 광야 별판길로 가게 된다. 발은 편하지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다. 아름다운 인생 경치도 없다.

17. 좋아도 나빠도 다 <장단점>은 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을 택하여 가라.

18. 마음도 생각도 몸도 지체도 푹 처진 것을 쑥 올리면, 높이 쑥 올라와서 솟게 된다.

19. <마음과 생각>이 축 처지면, 축 처진 몸처럼 눈에 확 보인다.

20. <마음과 생각의 차원>을 확 올리면, 축 처진 몸을 운동하여 확 올려놓은 듯이 눈에 확 보인다.

21. 힘을 빼면 자기 키에서 2cm 작아 보이고, 몸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꼴꼴이 세우면 자기 키가 더 커 보인다. 키가 작아도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활기차 보인다. 인생 삶도 힘을 확 주고 힘내서 행해라! 그래야 인생 길 가다가 머리에 안 닿을 것도 닿아서 수고하고 노력하여 먹고 잔치한다.

22. 힘을 주고 <생각>을 세워라!

23. <생각>을 세우면, 많이 보인다.

24. 눈을 높여야 높이 있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인다.

25. 힘을 주고 <행실>을 높여라! 그러면 큰 것들이 보이고, 하고 싶은 호기심이 치솟아서 희망으로 행하게 된다.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문제가 닥치면, 파도 넘어가듯이 출렁출렁 이리저리 넘어가야 된다.

2. 따질 때는 ‘상대가 잘한 것’ 가지고 따지고, ‘상대의 문제’ 가지고 따진다.

3. 호랑이가 각종 동물들과 순리로 좋게 따지면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 모두 이해하고 좋아한다. 그러나 그만큼 갈 길을 숨 가쁘게 뛰어가야 된다.

4. 삼위일체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따라오는 어린아이 성품을 가진 자’를 보고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것’을 이루신다.

5.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 생선을 먹다가 작은 가시가 목에 걸려서 모든 진수성찬을 못 먹게 된다. - 만사의 일도 그러하다.

6. <작은 일>에 걸려서 <큰일>이 지체된다.

7. <작은 자>는 ‘작은 길’ 가게 두고, <큰 자>는 ‘큰 길’을 가라. 가다 보면 길이 합쳐져서 ‘같은 길’로 가게 된다.

8. 흙탕물도 계속 흐르다 보면 맑아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9. 글을 쓸 때 ‘정자체’로 써야 할 때도 있고, ‘흘림체’로 써야 될 때도 있다. 사람도, 만사의 일도 때에 따라 그러하다. <큰일>을 앞두고 <작은 일>을 속 시원히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체하여 ‘밤길’ 뛰지 말자.

10. 나무를 살필 때 <큰 가지>만 살피고, <작은 가지>는 흔들려도 그냥 두어라. - 만사의 일이 그러하다.

11. 나무의 <큰 뿌리>는 살피고, <작은 뿌리>에는 손이 안 가도 된다. <작은 뿌리> 가지고 ‘나무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하고, 만사의 일도 그러하다.

12. <작은 뿌리 같은 일>은 ‘각자 책임’에 맡겨라. 그래도 <큰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상할 뿐이다.

13. 잔칫집에 비둘기들이 날아가면서 배설물을 싸도, 잔칫집에는 지장 없다. 다만 기분이 나쁠 뿐이다. - 만사의 일들이 그러하다.

14. 실바람에 옷자락은 흔들려도, 옷은 못 벗긴다.

15. 새로 온 자들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정중히 ‘말씀’만 희망으로 가르쳐라.

16. 도랑 청소 먼저 하지 말고, 물 먼저 흐르게 해라. <물>은 ‘말씀’이다. 물이 흐르게 되면 물이 청소해 주고, 본인도 그 물로 청소한다.

17. <지혜>는 ‘판단’이다. 만사의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해야 된다.

18. 같은 공식이지만, 문제도 답도 다르다. - 사람의 문제도 그러하다.

19. 이해하고 가면 끝난다.

20. 안 잡으면, 가물가물한 저 곳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면, 찾지도 못한다. 주가 네 생명 위해 끌어안고 가니, 위험할 때는 너도 날개를 쳐라.

21. 아름다운 곳도 '개발'해야 된다. 섭리역사도, 각 개인도 '개발해야 할 새로운 신세계'다.

22. 아직 '새로운 세계'가 무한대로 있다. 각종 존재물들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있다. 개발해라. 그러나 여기저기에 야수들도 살고 있다. 그러나 야수들은 공격하면 사라진다.

23. 기도, 찬양, 예술, 말씀, 전도, 집회, 월명동의 할 일, 섭리사의 할 일들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 하고 있어도, 정돈됐어도 하나하나 개발해야 된다. 모두 '할 일들'이다.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새로운 세계>에 왔어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2. <섭리역사 새로운 세계>에 와서 새롭게 됐어도, 또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는다.

3. 계속 새롭게 해야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차원을 높여 계속 얻게 된다.

4. <그 차원에 있는 것>은 '그 차원'에 올라가야 얻는다.

5. <상대편 입장>에 처해서 생각해야 '그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게 된다.

6. <새로운 것>은 새로운 호기심이 유발되어 행해 보고자 한다. 고로, 때에 따라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된다.

7. 새롭게 하던 것이 끝났으면, 또 새롭게 하는 것이다.

8. 새롭게 하지 않으면, 생각도 행위도 무기력해진다.

9. <새롭게 하는 것>이 연속되려면, '행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10. <일>을 함으로 '새로운 것'이 생각난다.

11. 일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일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고 하는 방법이다. 둘째, 먼저 일의 시동이 걸리도록 행해 보고, 일의 시동이 걸리면 생각하고 구상하는 방법이다.

12. 일주일, 열흘, 21일, 한 달, 40일 동안 계획한 것들을 극적으로 하면 '시동'이 걸린다.

13. 시동이 걸리면,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자기 몸을 힘겹게 끌고 다니면서 할 때보다 10배, 100배 이상 행해진다.

14. <제때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몸을 힘겹게 끌고 다니면서 행하는 자'로서 아직 정신적, 영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힘들다.

15. 새벽부터 제시간을 지키고 행해야 욕도, 혼도, 영도 시동이 걸린다.

16. 잠언을 받아도, 계시를 받아도 ‘시동’이 안 걸리면 자기 의지와 생각으로 쓰게 된다.

17. 설교를 해도 ‘시동’이 안 걸리면, 자기 몸을 끌고 다니듯 힘겹게 말씀을 전하고, 자기 의지로 말씀을 끌고 가고, 그로 인해 듣는 자들도 시동이 안 걸린다.

18. <성령과 주의 심정>으로 ‘시동’이 걸려서 설교하고 강의하면, 뜨겁고 감동적이다. 그로 인해 듣는 자들을 주와 일체 시킨다.

19. 기도, 찬양, 예술, 전도, 강의, 관리, 설교, 생활 모두 <말씀>을 깊이 알고 <성령의 시동>이 걸려서 행해라.

<2016년 6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도 주도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 그러니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2. 처음에는 자기 의지, 그다음에는 성령과 주의 의지다.

3. 신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찾으면 있고, 안 찾으면 없다.

4. <유전자>는 ‘최고의 단백질’에서 생긴다. 땅에서 짐승도 태어나고 식물도 자라듯이, 인간도 ‘최고의 인간 성분’에서 태어난다. - 하나님은 이같이 인생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육>은 ‘흙, 땅’에서, <영>은 ‘하늘’에서다.

5.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됐다면, 왜 계속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안 되냐. <짐승>은 ‘짐승’만 되고, <사람>은 ‘사람’만 된다.

6. <인간의 영>까지 ‘땅’에서 만들어졌다면, 계속해서 <영>이 ‘땅’에서 생겨야 된다.

7. <짐승>은 ‘짐승’이며,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의 육>은 ‘땅’에서, <영>은 ‘하늘’에서다.

8. 만들어야 변화된다. 변화되면, 변화되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

9. 흙이 있어도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 ‘제2창조’를 해야 신비하다. 사람도 그러하다. 세상에 태어났지만, 거기서 다시 만들어 ‘제2창조’를 해야 신비하다.

10. 만들 때 신비하고 신기하다.

11.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때, 신비하고 신기하다.

12. 시계를 만들 때, 신기하다.

13. 차나 각종 물건을 만들 때, 신기하다.

14. 집을 만들 때, 신기하다.

15. 사람도 만들 때는 참 신기하다.

16. <만드는 것>이 ‘변화’다. <개발과 건설>이 ‘변화’다.

17. 행하면 변화되어, 목적이 이루어진다.

18. <자기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해야! <자기 영의 형상>도 변화되어 신비하고 신기하게 된다. 만들면 변화되어, 처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있다.
19. 만들되,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하게 만드느냐’가 문제다.
20. 만들어야 ‘희망’이 있다.
21. 만들 때는 신기한데, 만들어 냈을 때는 구체적으로 못 본다. 이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22. 집을 지을 때도 하나하나 만들 때는 ‘내부 구조’와 ‘배수관, 전기선’ 등을 다 볼 수 있다. 고로 신기하다. 그러나 다 만들어 놓으면 못 본다. <겉>만 보는 격이기 때문이다. 고로 그 내용을 다 배워야 신기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다 만들어 냈어도 <겉>만 보면 ‘겉의 신비’만 안다. ‘속의 것’을 알아야 신비하다.
23.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다 만들어 놓은 것>만 보면 ‘겉’만 보는 격이라서 ‘신비함과 신기함’을 다 못 느낀다. 고로 38년 동안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듣고 배워야 신비하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다 만들어 놓은 것’만 보니 신비함을 모른다. ‘창조 과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 배워야 그리도 신비하다.
25. 천연 굴도 다 만들어 냈을 때 보면 ‘완성된 것’만 신기하다. ‘용암이 녹아 흘러서 굴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겠느냐.
26. 남녀가 결혼해서 다 완성하여 살 때만 보면, ‘그 사연과 신비함’을 모른다. ‘만나서 연애하면서 만드는 과정’이 그리도 신기하다.
27. 월명동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도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28. 작품도 ‘완성품’을 보면 좋지만,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도 재미있고 좋다.
29. 사람이 ‘목적을 이뤘을 때’도 좋지만, ‘목적을 두고 행할 때’ 그리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30. 체질과 성분을 좋게 가지고 태어났어도, 사람은 먹고 생활하기에 따라서 체질이 뒤바뀌고, 배우고 깨달기에 따라서 마음도 성분도 뒤바뀐다.
31. <운동>이 ‘힘’이다.
32. <음식>도 ‘힘’이지만, <운동>도 ‘힘’이다. 초인으로 만든다.
33. 사람은 ‘부모 유전자의 영향’을 받고 ‘부모 체질’로 태어난다.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고 커 가면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체질은 뒤바뀐다. 어릴 때는 ‘부모 체질의 영향’을 받으나, 커 가면서 ‘먹는 음식과 자기 행위’에 따라서 체질이 뒤바뀐다.
34. 사람은 ‘부모의 성격’을 타고난다. 그러나 크면서 만들면 부모에게 받은 성격을 뒤엎고 변화시키니, 별 문제는 없다.
35. 사람은 ‘사람의 성격’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성품’을 배우고 행하면, ‘인간의 성격’을 뒤엎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된다.
36. 누구든지 ‘제2창조’를 하면, 기존의 것을 뒤엎게 된다.

37. <부모에게 받은 성격>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자기가 '제2창조'를 하여 잘 만들면 된다. 만드는 것이 문제다.
38. 사람은 100% '부모의 유전자'로 태어났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이 순전히 부모의 살과 뼈의 성분으로 태어났다. 고로 '제2의 부모'다. - 하지만 자기가 '제2창조'를 하면 뒤바뀌게 된다. 생각도, 행함도, 몸 체질도 그러하다. 피부도 개선하면 된다. 부모 피부가 거칠면 자기도 피부가 거칠지만, 잘 관리해서 좋게 변화시키면 된다. 또 부모가 병 체질이면 100% 부모의 유전자로 태어났기에 그 체질을 그대로 받으나, 자기가 운동하고 음식을 잘 먹고 개선하면 문제없다.
39. 식물이 '응달 식물'로 태어났어도 큰 문제 될 것 없다. '양달'로 옮겨 체질을 개선시키면 된다.
40. 개선하면 개선한 대로 되고, 만들면 만드는 대로 된다.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 주신 말씀) <앞의 사람이 사명을 하면서 지나온 곳>은 부지런히 '후세들'을 세우고 배치하여 사명을 하게 해 주여라. 앞의 사람 의식 말고 세워라. 앞의 사람은 이미 행하고 지나갔기에 지난 것을 다시 못 한다.
2. <앞의 사람이 과거에 뒀던 것>은 다시 못 뒀다. 그러니 그 센터에 따라서 '후세들'을 계속 배치시켜 행하게 해라.
3. <앞의 사람이 사명을 하며 뒀던 곳>에 '후세들'을 배치하여 '뒤의 땅'을 차지하고 뛰게 해라.
4.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에 이어 <신약>을 배치했고, <신약>에 이어 <성약>을 배치하여 뜻을 이루셨다.
5. <개인>도 <민족>도 <역사>도 한 번 가면, 다시는 영원히 안 온다.
6. <자기가 지나온 노정>은 자기가 또 못 간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미 그 길은 지나왔다. 자기는 다시 10대, 20대로 못 가니, 빨리 '자기 후대'를 세워 그 노정을 뛰게 해야 된다.
7.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지나온 인생길>은 부모가 다시 못 가니, '자녀'를 가르치고 길러서 개성대로 '그 노정'을 뛰면서 살게 해야 된다. 안 하면 가지고 있던 논밭, 산, 집들이 모두 '당세'에 끝난다.
8. <자기가 하던 일>의 '후자'를 안 세우면, 그 일은 '후대'가 끊긴다. 고로 '후대에 이름'도 없다.
9. 주도 '할 일들'을 섭리사에 물려주니, 모두 뛰고 달리며 1000년 동안 시대 복음을 외치게 된다. 그래야 '그 이름과 가르침'이 남게 되고, 그들도 세상을 구원하며 역사를 펴 나간다.
10. 가령, 자기가 30세라 하자. 10대 코스와 20대 코스는 다시 못 간다. 고로 주께 배우면서 '후대'를 키우고, 각자 개성에 따라 가르치면서 자기가 뛰었듯이 뛰고 달리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자기 이름'도 남고 '자기의 말과 행동'도 남는다. 안 하면 '당세'에 끝나고, 후손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 후대가 자기가 왔던 코스를 뛰고 날도록 빨리 키워라. 이것이 '장인 정신'이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후대가 계속 그 일을 하게 해 주여라. 이것이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다.
11. <예수님이 하던 일>을 '후대'가 하면서 외치고 가르쳤다. 고로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한 말씀'을 외치고 '베드로가 한 말씀'을 외친다. - 섭리사도 이같이 하여라.
12. <시대 구원자가 행한 것>도 '후대'가 계속 외치면서 가르치게 하여라. 그래야 1000년 동안 '그 말씀과 행함'이 남고, 후대가 힘을 받고 더욱 '역사'를 이루며 나간다.

13.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앞에 행한 것들>도 가르쳐서, 후대가 모두 행하게 해 주어라. 그래야 ‘자기가 행한 것’이 계속 남는다.

14. <예수님이 노방에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계속 행했기에 2000년 동안 계속 전도되었고, ‘예수님의 노정’이 남았다.

15. 섭리사도 <주>가 노방에서 외치고 생명들을 데려와서 가르쳤듯이 주를 따라 계속 해 왔기에, 계속 전도되어 ‘주가 행한 것들’이 남고 있다.

16. 대대로 해야 존재한다.

17. 사람을 가르치고 기를 때는 꼭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하나 되어 가르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탄이 안 채 간다. 이를 명심하고 생명들을 가르치고, 각자 개성으로 행할 일들을 가르치고, 주와 일체 된 삶을 가르치면서 ‘변성’하게 하여라.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영적인 자>는 ‘육적인 자’도 되어 ‘균형’을 이룬다.

2. <육적인 자>는 ‘영적인 자’가 되기 힘들다.

3. 6000년이나 소망하고 기다린 역사인데, 무지하고 부패하고 준비가 안 되고 화평하지 못하여 실패했다. 그러나 ‘주’가 희생함으로 대신 해 주고 다시 살렸다. 휴거까지 이루게 해 주었다. 다시 살렸으니, 휴거까지 이루게 해 줬으니 ‘주의 조건’을 알고 해야 된다.

4.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 때는, ‘육적인 것’이 그렇게도 화려하고 푸짐하고 돋보이고 기쁘고 흥분되고 좋다. 그러나 <영적인 생각>으로 넘어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화려하고 푸짐하고 돋보이고 좋고 기쁘다. 그러다 ‘육적인 것’을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5. 사람들의 마음은 기뻐 흥분되면 - 만물이든 사람이든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하여 좋게 보이고, 좋게 들리고, 좋게 느껴지고 생각된다.

6. <영적인 자>는 ‘영에 속한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더 좋게 들리고, 더 좋게 느껴진다.

7.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것들’이 더 좋게 보이고, 더 좋게 들리고, 더 좋게 느껴진다.

8. <영에 속한 자>는 ‘변화된 영’을 얻고, ‘영에 속한 천국’을 얻고, ‘천국에 속한 영원한 것들’을 얻고 영원히 누린다.

9.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세계의 것’을 보고 듣고 누리나, ‘영에 속한 세계의 것’을 얻지 못하여 영이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

10. <영에 속한 자>는 ‘육적인 것’도 축복으로 누리고, ‘영적인 것’도 영이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육적인 것’만 누리고 ‘영적인 것’은 못 누리고 육으로 끝난다. 영은 영원한 고통이다.

11.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살면, 참으로 안타깝게 살아간다.

12. 자연성전도 차원을 못 높이고 옛날 그대로라면,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원망하며, 소망과 희망 없이 참으로 불행하고 불쌍하게 지옥같이 살았을 것이다.

13. 세상길에서 돌이키고 회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니 ‘신앙’도 살아났고, ‘영의 세계’도 살아났고, ‘내 고향 월명동’도 삼위가 구상하신 뜻대로 개발하여 천국같이 이상세계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육의 세계의 기쁨’을 누리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됐다. 이와 같이 세상길로 가던 데서 돌이키고 회심하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차원’ 높여 살아가라!

14.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살면, 정말 고생하며 탄 세상에서 산다. 차원을 높이면, 이상적인 세계에서 이상적인 것을 얻고 살게 된다.

15.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가듯이,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간다.

16.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맞는데, ‘실체’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17. 어떤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되는데, ‘실체’로는 된다. 고로 안 돼 보여도 ‘할 일’이라면 행해 봐야 된다.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여자가 옆에 있으면, 남자는 금방 이성으로 무너진다. 한 명은 <실제 여자>이고, 또 다른 한 명은 <보이지 않는 여자>, 곧 <이성 생각>이다. 옆에 <실제 이성의 대상>이 없어도 ‘이성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여자>다. 여자도 그러하다. 옆에 <실제 이성의 대상인 남자>가 없어도 ‘이성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남자>가 되어 이성으로 무너진다.

2. <실제 존재자>가 있고, <생각의 존재자>가 있다. 이 두 존재자를 다스려 ‘이성 세계’를 다스려라. <이성>은 ‘두 가지 구멍’에서 온다.

3. <보이는 실체>만 눈여겨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생각>도 보아라. 안 그러면 당한다.

4. (그림) <자기>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공격한다.

5. <자기 생각>은 ‘자기 것’이다. 그러니 ‘온전치 못한 생각’을 짓몽개라.

6.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성공 길’을 가게 만들기도 하고, 못 가게 만들기도 한다.

7. 자기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자기에게 적’이다. 이때는 봐주지 말고 자르고 끊어라. <자기>가 자기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한다. 사탄은 ‘그 사람 자체’를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그 사람 자체’를 통해 역사한다. <자기 자신>이 참으로 크다.

8.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된다. <생각>을 ‘올바른 방향’에 대야 바람이 불 때 ‘생각의 돛’을 밀어 준다.

9. <생각>이 ‘나침반’이다.

10. 용 그림에 화룡점점 격으로 눈동자를 찍으면, 용이 하늘로 날아간다. <인생의 화룡점점>이 무엇이나. ‘모순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면 ‘하늘로 날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11. 물건에 ‘흠’이 있으면 꺼려져서 안 사 간다. 사람도 ‘흠’이 있으면 안 쓰게 된다. 그 흠을 메우고 고쳐야 쓴다.

12. 물건이 고장 났는데 팔리겠느냐. 사람도 그러하다.

13. <쓰는 기술>도 크고, <고치는 기술>도 크다. 둘 다 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자기를 존재시킨다.

14.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열 번’ 시켰는데 ‘한 번’도 안 했다. 그래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다. 잘못 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는지 깨닫고, 알고 대해라.
15.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시켜서 안 했는데, 오히려 책망한다. 그러니 ‘자기 무지를 자랑하는 꼴’이 된다.
16. 잘 시켜야 잘한다.
17.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라면, 더 잘 구상하여 시켜야 된다. <말>과 <실체>는 다르기 때문이다.
18. 한 가지만 보고 하다가, ‘금강산과 개성 공단 꼴’이 된다. (한 가지만 보고 하다가 결국 북한에 투자한 금강산, 개성 공단을 다 뺏기고 말았다. 이를 해외나 한국이나 청중이 잘 모르면, 간단히 상황 설명해 줘도 됨.)
19.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이 꼴 저 꼴 다 보게 된다. - 섭리사도 그러하다.
20. 급하다고 ‘밑돌’을 빼다가 ‘위에 쌓은 돌들’까지 다 무너진다. 만사에 이렇게 ‘현실’만 보고 하니, 개인과 민족 모두 산같이 해를 받는다.
21. 이것저것 다 보고서, 무게 있게 해라.
22. 개인 경제 운영, 가정 경제 운영, 교회 경제 운영도 잘해야 된다.
23. <경제>를 덜렁대며 운영하면,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된다.
24. <신앙 경제>도 그러하다. 육 경제, 신앙 경제의 밸런스를 맞추어서 해라.
25. <육적>으로도 뛰고, <영적>으로도 뛰고 달려야 된다. 밸런스다.
26. <경제>만 퍼면 ‘육적’으로는 먹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다 결국 ‘영적 부도’가 나게 된다. 그렇다고 <영적>으로만 뛰면, 먹고 살지 못해서 곤고하다. 잘 조절하여 밸런스를 맞춰 뛰어야 된다. 다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뛰느냐가 문제다. 경제도 살피지만, 영적으로 집중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다.
27.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춰라.
28. <시간>도 좌우로 치우치면, 하나밖에 못 한다.
29. <시간>이 없으면, 만사의 모든 것을 못 한 채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
30. 그림을 그릴 때도 <한 가지>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것만 강조해서 그리면, 오히려 <전체>가 죽어 버린다.
31. <한 가지>를 크게 그리려면 <전체>도 크게 그려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32. <주먹>을 강조하기 위해 주먹을 크게 그리려면, <팔뚝>도 크게 그리고 <어깨>도 크게 그리고 <몸>도 크게 그려야 된다. 만일 팔뚝, 어깨, 몸을 작게 그리면 오히려 힘이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신앙>도 ‘밸런스’를 맞춰야 전체가 돋보이고 빛나고 인정하게 된다.
33. <삼위와 주와 일체 되는 것>도 커야지, <행실>만 크게 한다고 해서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만큼 - 희망에 불타고 기쁘고 흥분된다.
2. 할 일을 하면서 못 참으면, 거기서 희망도 기쁨도 흥분도 끝난다.
3. <최고봉>에 가야 마음도, 생각도, 온몸도 기쁘고 흥분된다. 그러나 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 이때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 <휴거 700선>까지도 이렇게 가는 것이다.
4. 가령 <산 정상>에 오르는 자가 '90부 능선'에 갔다 하자. 거기서는 '한쪽 배경'만 보고 느끼게 된다. 그것은 일부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야 목적지 '최고봉'에 도착하고, 거기서는 '동서남북'이 다 보이니 마음도, 몸도, 눈도 최고로 기쁘고 흥분된다.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참고 견디는 만큼 희망으로 목적지까지 가게 되고, 끝까지 가서 '극'에 가야 마음도, 생각도, 몸도, 혼도, 영도 희망차고 기쁘고 흥분된다.
5. 인생이 다 보고 다 느끼면서 희망과 기쁨과 흥분에 차려면, 참고 견뎌야 된다. 극한 절벽을 타고 오르는 것도, 극한 험한 길을 가는 것도 참고 견디는 만큼 희열을 느낀다. 분노도, 화도, 혈기도, 억울함도, 분한 것도 참는 만큼 선(善)을 느끼고,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 지속된다. 힘들다고 가다가 말면, 멈추는 즉시 희망도 기쁨도 흥분도 떠나가고 끝난다.
6. 참는 만큼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또 목적지에 가면 모두 느끼고, 얻고, 받고, 잔치하며 기뻐한다.
7. <천국까지 가는 신앙의 길>도 참고 행하는 만큼 '과정'에서 보람과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끝까지 가면 '목적지'에서 다 보고 다 들으니 그때는 생각도 혼도 영도 100% 천국의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만일 <육신이 살아 있을 때> 혼과 영이 천국에 갔다면, '육'도 혼과 영처럼 다 느끼고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다.
8. 불의로 가는 길,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참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를 위해, 자기 구원과 휴거를 위해 행하면서 참는 만큼 희망과 소망을 느끼고, 다 보고 들으며 기쁨과 흥분이 일어난다.
9. 신앙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 삼위와 주의 뜻을 놓고 행할 때, 참고 행하는 만큼 생각도, 마음도, 눈도, 귀도, 혼도, 영도 희망으로 기뻐하며 계속 흥분이 일어난다.
10. <끝까지 견디는 자>만 얻는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다.
11. 참고 견디면 평생 희망, 평생 기쁨, 평생 흥분이다. 그로 인해 얻고, 계속해서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 연속된다.
12. <참는 자>가 기쁘다. <참지 못한 자>는 화로 끝난다. <참는 자>는 선의 기쁨과 흥분이 연속되고, 결국에는 얻는다.
13. 스키 타는 자가 <추운 것>을 참고 견디면서 타는 만큼 '스키의 기쁨과 흥분과 스릴'을 느낀다. 그 맛과 흥분과 기쁨으로 땀이 나고 열이 나서 '추위'는 없어진다. 춥다고 집에 간 자는 그 자리에서 '스키의 기쁨과 흥분과 스릴'이 끝난다. 신앙도 그러하다. 어려움과 억울함에 부딪혀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자가 '심령의 보화, 기쁨과 흥분의 보화'를 얻고 누리는 자다.
14. 그때마다 <자기 꿈, 복, 희망, 기쁨>을 이루는 과정 중에 쓴맛과 고통, 억울함, 분노, 화, 미움, 시기, 질투, 눈총, 무시, 굶주림, 뺨김, 쫓김,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걱정·근심·염려가 닥쳐온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걸러 내면 '꿈, 복, 희망, 기쁨'이 결단코 이루어진다. 고로 마음을 굳세게 하고, 삼위와 주께 고하여 같이 참고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얻는다.
15.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런 것들을 겪고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 냈고, 결국 '개인의 복'도 받

왔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었다.

16. 섭리 길을 가면서도 이같이 쓴맛과 고통, 억울함, 분노, 화, 미움, 시기, 질투, 눈총, 무시, 굶주림, 뺨김, 쫓김, 외로움, 두려움, 쓸쓸함, 걱정·근심·염려를 겪고 받으면서, 결국에는 얻고 누리고 있는 바다.

17. <악 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이루기 위해 참고 견디며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다. 그렇게 얻어도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18. <극적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보고 듣기 위해 ‘극의 선(線)’을 넘어가면, 딴 세상이다. <하나님 주관권 안>의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다.

19. <선(善)>의 ‘선(線)’을 넘으면 ‘불의’다. ‘악’이다. 그러면 희망도 기쁨도 흥분도 끝난다.

20. <인간의 선(線)>이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선(線)>이 있다.

21. <악의 선>이 있고 <의의 선>이 있다. 이는 한계선이고, 경계선이고, 주관권의 선이다.

22. 산 정상에서 선(線)을 넘어가면, 내려가는 길이다. 만사가 그러하다.

23. 선(線)을 넘어가면, 끝난다.

24. 선(線) 안에서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니까, 선을 넘어도 그럴 줄 알고 넘어간다. 그 선을 넘으면 세상이요, 불의의 주관권이다. 고로 선을 넘는 즉시, 참고 견디며 누리던 것은 끝나 버린다.

25. 존재물도, 사람의 삶도, 사랑도 ‘극치의 주관권’이 있다. <그 주관권 안>에서만 보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흥분되어 기쁘지, <그 주관권>을 넘으면 순간 딴 세상으로 뒤바뀐다.

26.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자는 <물 주관권 안>에서만 수영하며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여기서 더 가면 더 기쁨을 느끼겠지.’ 하고 더 가면,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쳐서 물에서 나와야 된다. 그때부터는 기쁨과 흥분이 사라진다. <의의 선(線)>도, <만사의 모든 선(線)>도 이같이 엄격하다. 선(線)을 넘어가고 벗어나면, 즉시 딴 세상이다. 고로 희망도 기쁨도 흥분도 끝난다.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27. 순간 분노를 못 참아서 욱도, 생각도, 혼도, 영도 3년, 6년, 10년, 20년, 혹은 평생 동안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지옥 고통까지 받는다. <세상>도 ‘창살 없는 감옥’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은 ‘영원한 감옥’에 갇히고, <육신>은 자기 행위로 인해 스스로 ‘감옥의 고통과 아픔’을 받으며 갇혀 살듯 하게 된다.

28. 욱도, 혼도, 영도 흠 없게 하여 갇히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여라.

29. 진수성찬을 계속 먹고 사는 자는 체질이 되어, 그 외의 것이 몸에 안 받게 되고, 혹은 진수성찬을 먹어도 별 감흥이 없게 된다. 신앙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세계’에 있어도, 인이 배면 처음 같지 않고 감각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진다. 그러다가 환난이나 곤고함을 겪고 나서, 다른 주관권을 접했다가 다시 오면 다시 제대로 느끼게 된다.

30. 섭리사에 살면서도 <시대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모든 삶>에 무더져 무기력에 처한 자들은 ‘새 시대의 맛과 희망과 기쁨과 흥분’을 제대로 못 느낀다. - 이런 자들은 ‘새롭게’ 해야 된다. 새 역사에 와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감각이 약해지고,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 새롭게 방법을 달리하여라.

31. 여름에 시원한 냉수를 계속 먹으면, 시원함을 못 느낀다. 겨울에 뜨거운 방에 계속 있으면, 따뜻함을 못 느낀다. 살과 몸의 신경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이다. 신앙도 그러하다. 늘 ‘좋은 것들’을 받고 있어도 인이 배고 체질이 되면 ‘신경, 뇌, 생각, 몸’이 무기력해지고 감각이 약해져서 못 느낀다.
32. 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자는 인이 배고 체질이 되고 무기력해져서 도와줘도 감사 감격하지 않고 기쁨을 못 느낀다.
33.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한 시간쯤 떨고 다시 들어가면, 방이 뜨겁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계속 ‘좋은 것들’만 받고 있으면, 좋다는 것을 못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고로 개인에게도, 섭리사에도 ‘찬바람’이 불게 할 때가 있다.
34. 나이 먹으면 뇌도, 신경도, 몸도 무뎌지고 세포도 죽어서 무기력해지고 느낌도, 희망도, 기쁨도, 흥분도 잘 못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도 감사 감격하며 힘 있게 끌고 나갈 수가 없다. 고로 시대에 따라 ‘젊은이들’로 계속 교체되고 넘어가는 것이다.
35.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도 더 느끼고, 더 희망 있게 하고, 더 기뻐하고, 더 흥분하고, 더 감탄하고, 더 감격 감사하며 살려면 새롭게 전환하며 만들어야 된다.
36. <생각>이 무디면, 줘도 모르고 못 느끼고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그냥 안타깝게 지나간다.
37. 환난 때는 ‘환난’으로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축복>을 받아도 ‘환난’만 중심하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쏠려 있다. - 고로 모르는 것이다.
38. 생각이 무기력할 때는, 줘도 못 느낀다. 느껴도 조금 느낀다. 고로 조금 줬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선악 간에 다 주신다. 마치 때가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듯, ‘희망과 기쁨과 흥분과 축복’이 계절같이 오고 간다. 많이 느끼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흥분하고,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것은 - ‘자기를 만든 것’에 따라 느끼고 겪게 된다.
39. 매일 <자기 행위>대로 ‘희망과 기쁨과 흥분과 축복’이 오고 간다.
40. <생각>을 ‘새롭게’ 하고 <몸>이 ‘풀려야’ 무기력함이 없어진다.
41.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감각을 잃어 못 느낀다. <생각>도 그러하다. 마치 ‘저린 손발’을 풀어 주듯 <생각>을 풀어 주고 집중하면, 다시 감각이 살아난다.
42. 무기력한 자에게 무작정 다가가면 힘만 든다. 먼저는 <생각>을 풀어 주어야 한다.
43. 생명을 관리할 때는 꼭 ‘상대의 생각’을 풀어 주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해 줘야 된다.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잠을 깨고 일어나야 - 날파리라도 잡는다. (잠에서 깨니 날파리가 방 벽에 앉아 있었다. 잡았다! - 자연 계시)
2. 움직여야 - 날파리라도 잡는다.
3. 마음만으로 행하면 - 날파리도 못 잡는다.
4. 육이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꿈이나 생시에 보여 주고, 하면 하는 대로 보여 준다.

5. 못 한 자들을 보면 ‘하찮은 것’을 가지고 못 한다. 마음을 강하게 먹었으나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이다.
6. 실패한 자들과 사고 난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 <해결할 문제>는 쉬웠는데, <생각>을 나쁘게 하고 전심으로 안 해서 그리된 것이었다.
7. 실패한 일도, 안 된 일도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일’이었다.
8. 몰라서 당하고 손해 갔다.
9. 알았으면 아주 쉽고 간단히 처리될 문제였다.
10. 능히 간단히 처리될 문제인데, <생각>을 나쁘게 하고 해 버리니 실패한 것이었다.
11. <생각>을 잘하고 했으면, 간단했다.
12. 불의하게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는다.
13. <큰 문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된다!
14. 온전하게 생각하고 살면, 삶이 쉽다.
15. 불의한 길은 대가를 받으며 살아야 되니,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다.
16. 늦더라도 상대와 의논하고 행해라.
17. 의논하지 않고 행하면 자기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 상대가 막으면 못 하게 된다.
18. 교회 지도자가 의논하지 않고 행하면 안 된다. 교인들 각자에게는 ‘자기 몫’이 있다. 고로 ‘그 몫’은 누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고로 지도자가 의논하지 않고 하면, 그것은 막으니 못 하는 것이다.
19. <의논>은 ‘같은 주권을 주어 행하는 순리’다.
20. <의논>하지 않고 자기만 행하면, 자기 마음대로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1. <주권자>라도 의논하지 않고 하면, ‘독재’가 된다.
22. <사랑해 주는 것>도 ‘의논’하고 해야 된다.
23. <사명>을 받아도 ‘의논’ 없이 하면 안 된다. 같은 하늘 주관권이라 그러하다.
24. 어떤 남자는 자기 딸이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부인과 같이 딸을 때리다가 죽였다. 그리하여 각각 20년, 15년 형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악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이다. 선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결과가 달라진다. 자기가 못 하면, 남에게 맡겨서라도 만들면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했어야 됐다. 생각을 악하고 하고서 행했으니 딸을 때려 살인하고, 자기도 죽음의 길로 간 것이다. 성직자인데 그러했다. 자기 책임을 못 한 것이며,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25. <생각>을 잘못하면 간단히 해결할 문제를 힘들게 처리하면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도 사망길로 가게 한다.

26. 저마다 <문제>를 놓고,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하게 생각하고 처리해라. 그러면 간단하다.
27. <순리>는 쉽고, <역리>는 어렵다.
28. <연구>하고 하면 쉽고, <그냥> 하면 어렵다.
29. 날파리도 ‘찾아야’ 보인다.
30. 더 좋은 길도 ‘찾아야’ 보인다.
31. <한 명>이 희생하니, <많은 자들>이 살았다.
32. 많은 산짐승들이 있었는데 포수가 ‘한 마리’를 쫓아가 잡으니, 그 순간 ‘다’ 도망갔다.
33. <한 명>이 희생하면 <많은 자들>이 산다. 그러나 희생해 줘도 ‘행하지 않는 자’는 같이 고통도 받고, 죽음도 당하게 된다.
34. 이는 <목적>이 아니다. <교훈>이다. 고로 ‘교훈’만 받는 것이다.
35. 산짐승은 ‘한 개의 울무’보다 ‘여러 개의 울무’를 놓으면 엿힐 가능성이 많다. -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면으로 편지를 써서 주고, 사람도 설득할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 같은 사람, 극의 말씀으로 쳐 줄 사람 등 여러 명을 배치하라 하는 계시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방법>으로 하면 ‘간단’한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니 그리도 ‘복잡’하다.
37. <삼위의 방법>으로는 ‘꼭짓점’에서 해결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온 대지’를 다 헤매고 다닌다.
38. 생각을 잘못하고 대하면 ‘사랑 거리, 기쁨 거리’가 될 자가 ‘지옥 같은 고통 거리’가 된다.
39. <한 장소>가 있다. 주인은 ‘그곳에 정원을 꾸밀까, 운동하는 장소로 만들까, 집을 지을까?’ 고민했다. 그곳에는 ‘하나’밖에 못 만든다. 결국 그곳에 ‘집’을 짓고, 다른 것들은 희생시켰다. 이와 같이 <자기 인생>도 ‘제일 좋은 것 하나’만 하고, 다른 것들은 생각에서 희생시켜야 된다.
40. 잘못 결정하면 후회하고, 돌이키지도 못한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도 미래도 후회가 없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기뻐한다.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나 ‘꽃과 같이 질 때’가 있다. <인생의 꽃>이 지기 전에 목숨 다해 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런 시절이 없다.
2. <때>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때> 지나면 ‘그 일’은 끝난다. <때> 지나면 ‘그 일’은 ‘과거’가 되어 반복하지 못한다. 고로 <그 일>은 지나가서, ‘죽은 격’이 된다.
3. 사람이 <목적>을 향해 행하며 가더라도 ‘별것’ 아니면,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4. <목적>이 작아도 ‘호기심과 희망’이 있으면, 행하게 된다.
5.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들이 많다.

6. 자기가 수고해 놓고,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딴 자들에게 주지 말아라. 끝까지 해야 추수하게 된다.
7. 사기꾼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수고한 자의 것’을 침범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다.
8. <자기가 수고한 것>을 ‘악한 자’에게 뺏기지 않게 해라.
9. <조금> 도움 받고, <많이> 내어 주게 된다. 조심해라.
10. <지혜>는 ‘판단’이다.
11. <조금 유익>을 얻으려다 <많은 손해>를 받게 된다. 고로 조금 도움 받지 말고, 내가 하여라.
12. 지난날 겪은 것들을 생각해라. 교훈이다.
13. <그 그릇>은 ‘다른 그릇’은 못 된다.
14. 개종하여 다시 만들기 전에는 항상 그 생각, 그 행위다.
15. 혈기 내고 분노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이루려는 야망이 가득한 자’요, ‘자기 뜻만 이루려는 자’다. 보고 들어도 ‘자기 주관’으로만 보고 살아가는 자다. 생긴 대로 살아가는 자다. 정이 없고, 냉정하고, 폭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에 속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요,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자다. 교만하고 자기를 중시하는 자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섭리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자는 허락하지 말아라. 네가 쓸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때 쓰고 끝날 자다. 민족과 세계적으로 전능자가 알아서 쓸 것만 쓰고 끝내신다.
16. <작은 유익>을 위해 ‘상대가 들어와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할 문’을 따 주지 말아라.
17. 꿈에 보니 - 멀리서 보면 ‘큰 돌’인데, 가까이 가 보니 ‘아주 작은 돌’이었다. 이들을 보여 주신 것이다.
18. 이런 돌들은 한 데 모아 뒀도 ‘쓸 만한 것’이 없다.
19. <염소>는 <양>에게 도움이 안 된다.
20. 사탄과 마귀도, 악한 자도 그냥은 드러나니 ‘사람’을 쓰고 나타나 유인한다. <작은 도움>을 통해 들어온다. 그것으로 인해 ‘너에게 들어올 문’을 절대 열어 주지 말아라.

<2016년 7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화장실 옆에서 진수성찬 먹는 것 같아서 꺼린다.
2. 개똥밭에서 과일 따 먹는 것 같아서 꺼린다.
3. 변기에 빠뜨린 숟가락으로 밥 먹는 것 같아서 꺼린다.
4. 하수도에 떠내려가서 썩은 물에 있던 옷을 빨아서 입는 것 같아서 꺼린다.
5.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은 차를 다시 고쳐서 타고 다니는 것 같아서 꺼린다.
6. 공동묘지 지역을 개발하여 집 짓고 사는 것 같아서 꺼린다.

7. 쓰레기장, 화장실 터를 개발하여 집을 짓고 사는 것 같아서 꺼린다.
8. 찢은 음식을 다시 가공하여 다른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 같아서 꺼린다.
9. 자기가 벗어 놓은 옷에 뱀이 앉았다가 지나간 후에 그 옷을 다시 입는 것 같아서 꺼린다.
10. 까마귀가 먹다 만 과일을 먹는 것 같아서 꺼린다.
11. 깨진 조형물을 다시 붙여서 겉에다 금칠하여 사용하는 것 같아서 꺼린다.

<2016년 7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살>이 안 닿으면 못 느끼듯이, <생각>을 안 하면 못 느낀다.
2. 생각하는 자만 느낀다.
3. <주>만 ‘너’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주’만 느끼고, <네>가 ‘주’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네’가 느낀다.
4. <생각>을 안 하면, 상대가 사랑해 줘도, 말해 줘도 못 느낀다.
5. <생각>은 ‘눈’과 같다. 눈이 쳐다보는 쪽만 보이지,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보인다. <생각>도 이와 같다. 생각해야 느낀다. <생각이라는 눈>을 깨달아라.
6. 상대가 모르니 말을 하고, 대화하고, 편지해야 알게 된다.
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들을 쳐다본다고 하셨다. 고로 그 대상인 인생들이 말하든지 찾으려면, 금방 알고 통한다.
8. 인간들은 쳐다보고 생각해야만 보이고 느낀다.
9. 생각할 때만 느끼고, 몸이 닿을 때만 느낀다. 이 절대적인 이치를 깨달아라.
10. 누구나 쉽게 되는 일은 없다.
11. 배우고 힘을 들여 자꾸 행하면서 유능하게 해야 된다.
12.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자기 삶>은 ‘자기’가 살아야 된다. 고로 자기가 운전을 배우고 유능하게 운전하듯, <자기 삶>은 ‘자기’가 잘 운전해야 된다.
13. <육신> 가지고 행하여 <영>이 천국까지 가게 창조해 놓으셨다. 또 세상에서는 <육신>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행하는 수준만큼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잘못 살면 잘못되고 만다.
14. <하루> 잘하면 ‘하루’ 잘되고, <다음날> 안 하면 ‘그 날’은 안 되는 날로 살게 된다. - 매일 잘해야 된다.
15. <오늘> 잘하면 <내일>은 ‘오늘 잘한 것’을 가지고 경험이 있으니 그 터전 위에 더 잘할 수 있다.
16. 사람이 ‘목표’를 정하고 ‘생각’하면서 행해야 - 목표를 이룬다.

17. 그림을 그릴 때도 ‘목표’를 정하고 ‘생각’하고 그려야지, 그냥 그리면 안 그려진다. <생활>도 그러하다.
18. <목표를 정한다>는 것은 ‘집을 지으려 공사하기 전에 설계하는 것’과 같다. <설계>가 없으면 안 된다. 고로 ‘목표’를 정해 놓고 하면, ‘정신과 생각’이 그 목표를 쳐다보면서 하니 효과적이다.
19. <생각>은 곧 ‘행실’이다. 생각해야 행해지기 때문이다.
20. <생각>을 안 하는데, <행해지는 일>은 없다.
21. 저마다 성공할 수 있는 ‘자기라는 자료’가 있다. 그러나 목표를 정해라. 구상해라. 설계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행해라.
22.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메시아>와, <자기>, - 이렇게 다섯이 하면 다 된다!
23. 메시아라도 ‘행해야만’ 된다. 몸으로 행하지 못할 때는 <기도>라도 해야 된다. 메시아라도 안 하면, 일반 사람같이 안 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생각’으로라도 행해야 원하는 것이 된다. 고로 성경에 “<나 여호와와 열심>이 말한 것을 이루었노라.” 하셨다(왕하 19:31, 사 9:7). - 이는 곧 “나 여호와와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행하였노라.” 함이다.
25.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행하셨기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26. <하나님이 행하여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인간이 행하여 된 것>은 ‘인간의 것’이 되었다. 고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만드시려고, 24시간 인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행하신다.
27. <자기>가 행해야 ‘자기 것’이 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 고로 삼위일체는 늘 행하신다.
28. <삼위일체가 말씀을 통해 만든 자>는 ‘삼위의 것’이 되어, <그가 행한 것>도 ‘삼위의 것’이 된다.
29. <삼위의 것이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 놓은 자>는 ‘삼위일체가 행한 것들’이 모두 다 ‘그의 것’이 된다. - 연결된 것은 하나다.
3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차지하면, ‘삼위가 가진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 쓰게 된다. - 연결된 것은 하나다.
31. <자기 것>과 <남의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자기 애인>과 <남의 애인>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자기 돈>과 <남의 돈>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자기>를 ‘삼위의 것’이 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차지해라. 그러면 ‘삼위가 가진 것’도 ‘삼위가 행한 것’도 모두 ‘네 것’이 되어 쓰고 누린다.
32. <시간>도 쓰면 ‘자기 시간’이고, 안 쓰면 ‘남의 시간’이다.
33.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만들어서 써야,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얻게 된다.
34. 저마다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귀한 것’을 얻기도 하고 ‘천한 것’을 얻기도 한다.
35. 전능자 삼위일체와 주께 간구하여 ‘구상’을 받고 행해라!

36. 오늘 새벽 1시 5분 전에 잠에서 깬데,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하다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깨 보니 2시 15분이었다. 시간이 넘어갔지만, '나머지 시간'은 뺏기지 않고 차지하기 위해 얼른 씻고 기도했다. 그리고 잠언도 썼다. 이같이 늦어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하면, 된다!
37. <마음·생각·정신>은 '과일'이다. <진리의 말씀>은 '생명나무'다. <뇌 과일, 생각 과일>로 '삼위와 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말씀>을 뇌 속에 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성자는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다(요 14:15). <말씀을 뇌 속에 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자>가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자'다.
38. <육>은 '육체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만, <혼과 마음과 영>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삼위와 주와 사랑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니, 말씀을 불신하거나 소홀히 하면 결국 '삼위와 주'와 멀어지고 헤어지게 된다.
39. <말씀을 듣는 시간>은 '삼위와 주와 사랑하는 시간'이다. 고로 <말씀>을 들으면 감동되고 기쁘고 흥분된다. 행하면, 감동도 기쁨도 흥분도 더 엄청나다.
40.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생명나무'라고 하였다. 확대하면 <성자가 임한 예수님의 육신>이 '생명나무'였다. 영적으로는 핵이 '말씀'이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곧 '생명나무'였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41. <시대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나무'이며 '주'다. <시대 말씀>을 사랑하여 '뇌 과일'에 넣고 살아야 - 하나님과 주의 사랑을 느끼고, 행하여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
42. <신약 때>는 '말씀의 생명나무'를 '뇌'에 넣고 순종하며 산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43. <성약 때>는 '말씀의 생명나무'를 '뇌 과일'에 넣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에게 '신부'가 되는 법을 주시고, 휴거시켜 '황금성 천국'에 가게 하셨다. 누가 이런 자냐? 누구냐 하면 된다!
44.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나무>는 확대하면 '시대 구원자'다. <그>를 절대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명나무>를 '뇌 과일'에 넣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면 '휴거'되고, 계속 더 행하면 '차원'이 높아진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실천>이다!
45. <말씀>을 안 들으면, 마치 결혼했는데 사랑이 떨어진 것 같아서 주와 멀어지고 만다. <말씀을 가까이한 자>가 '주'와 하나 된다. <말씀을 멀리한 자>는 점점 '세상의 것들, 죽음의 것들'이 뇌 과일에 들어와서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46. <뇌 과일>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소유'가 된다.
47. <육 과일>도 '넣는 자의 것'이 된다.
48. <폭력배, 사기꾼, 악한 자, 악평자, 사탄과 마귀의 각종 죽은 이론들>을 '자기 뇌 과일'에 넣으면, '그들의 것'이 된다.
49. <세상 썩는 문화>를 한 민족의 문화로 보고 '자기 뇌 과일'에 넣고 행하며 '썩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50. 연애하며 성적으로 살다가 배신당하고 한이 되어 그것들을 '노래'로 지어 부르고 있는데, '민족의 군중들'이 그것을 좋아하며 따라 행한다. 결국 그것이 '민족 예술 문화'가 되었다. 이것은 '썩는 문화'다. <썩는 예술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51. <썩는 문화>란, '전능자의 뜻을 떠난 것들'이다.

52. <썩는 문화, 성적 쾌락, 물질 만능 풍조>를 절대 따르지 말아라. <썩지 않는 의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과 문화>를 '뇌 과일'에 넣고, 자기 육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래야 <육>도 형통하고, <영>도 영원히 형통한다.

<2016년 7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53. 하나님과 부모가 주신 <살>은 지상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살>은 만물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실크'로 비유한다. <살>은 질 자체가 다르다. 다른 것과는 부드러움이 비교가 안 된다. <살 자체>는 살아서 생명력이 있다. 삼위일체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살>에 고통을 주며 바늘로 수천 번씩 찌고 물감을 넣어서 각종 흉측한 모양을 새긴다. 곧 '문신'이다. 각종 짐승, 뱀 등 각종 모양들을 새긴다. 결국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져서 혐오스럽게 징그럽고 무섭게 되었다. 창조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노여워하신다. 어떤 사람은 한때는 좋아해서 문신을 했다가, 후에는 후회하고 괴로워하며 긁어냈다. 그로 인해 몸과 살에 흉터를 남긴다. 이런 것이 '건전한 문화'냐, '썩는 문화'냐? 몸에 '티'만 생겨도 '육의 티'라 하며 제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과 살>을 그렇게 막 대한다. 그래 놓고 매일 기도한다. 자기가 좋아해도 오히려 '해(害)'가 되는 것들이 많다. 결국에는 '해'로 끝난다.

54. 성령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살>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다. 지구 세상에서 최고 좋은 느낌을 주는 것 중의 하나가 <살>이다. 최고 부드럽다. 짐승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삼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하셨다.

55. <눈>은 '눈'으로 쓰고 <입>은 '입'으로 쓰듯이, <살>은 '살'로 써야 된다. 화가들같이 <그림>은 '종이'에 그려서, 당세에도 후대에도 수천 년까지 보게 해라. <몸>에 그림을 그리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진다.

56.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 생각과 체질대로 하면 '망하는 것'이 많다. 술도, 담배도, 마약도 자기가 좋아서 먹고 즐긴다.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 '후회하는 일'을 당한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감당을 못 하고 탄식하며 끝난다.

57.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지 말아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금방 좋아하다가도 금방 변한다. 고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다가는 곧 스스로 후회하게 된다.

58. <문신>은 '하나님의 법'으로 금지다. 섭리사에서는 '법'으로 금지다. 결혼도 안 시킨다.

59. 선생도 한때, '좋아하는 독수리'를 살에 그려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색깔 펜으로 순간 그려 봤다. 그런데 정말 보기 싫었고, 절대 아름답지 않았다. 또 '세계 미술 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선생의 작품'을 작게 몸에 새기고 다니면서 자랑할까 하고 호기심도 가졌다.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성자께도 물으니, "절대 하지 마라! 왜 예쁜 살을 짐승으로 만드느냐. 종이에 <뱀>을 그리면, 그 종이는 '뱀을 위한 종이'가 되는 것이다. 문신도 그러하다. 몸에 문신을 한 대로 '그 짐승'이 되고 '그 형상'이 되는 것이다. 왜 <만물의 영장>이 '만물을 담는 그릇'이 되느냐." 하고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살> 때문에 인간이 그리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살>과 <살색>을 넣어 인간을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했다. 지구 세상 최고 아름다운 미인도 '문신'을 하면, 최악의 사람으로 본다." 하셨다.

60. 사람은 <생각>에서 좋아지면, 마치 '성적으로 흥분한 자'같이 된다. 그러면 빠진다. 자체적으로 그것에 빠져 미친다. 만족한다. 그러다 온몸에 문신을 한다. 그러나 살다가 <살이 깨끗한 사람>을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정말 후회된다. 분명히 할 때는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지? 내 몸이 싫어진다. 왜 이 짓을 했지?' 하게 된다.

61. 자위행위도, 육적 사랑도 '할 때'는 최고로 흥분된다. 그러다 거기에 빠져서 몸 가지고 별짓을 다 한다. 그리고 끝나면 '왜 이렇게 했지?' 한다. <뇌>는 흥분되면, 정신이상자처럼 흥분된 대로 행한다.

62. 싸움도, 다툼도 뇌에서 열이 나고 흥분돼서 막 한다. 싸우고 다투다가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한다. 그리고 끝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며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 후회한다. 그때는 '내 정신 아니다.'

귀신에게 흘렸다.’ 한다. <자기 잘못된 생각과 흥분>으로 ‘사탄과 귀신’까지 흘린 것이다.

63. <문신>은 어릴 때는 그렇게도 좋아한다. 그러나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왜 했지?’ 하며 후회한다. 그리고 ‘문신한 사람들’은 다 싫어한다.

64. 이와 같이 <모든 썩는 문화>도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썩지 않는 생명권>에 완전히 들어오면 그제야 싫어한다.

65. <문신을 한 자>는 ‘문신’을 권한다. <문신을 해 주는 자>는 돈을 벌기 위해 사생결단하고 좋다고 한다.

66.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문신>은 ‘단 한 명’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67. 영계에서 사탄들과 악한 영들을 보아라.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닌다.

68. <천국>에는 ‘문신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자기 영의 위치와 권세의 표시>는 ‘옷’이다. 그리고 ‘머리의 금관’이다. 이것으로 ‘자기 위치와 권세’를 나타낸다.

69. 어떤 족속은 ‘자기 족속’을 나타내려고, 몸에다 점을 찍고 다닌다.

70. 운동선수들도 문신하면, 혐오감이 든다고 젊은이들이 말한다.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싫어한다. 그만큼 ‘지능이 발달’되어, 제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다.

71.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성령과 성자 주의 말씀과 생각’을 새겨라. 최고다!

72. 어떤 문신한 사람이 섭리사에 전도되어 왔다. 그리고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릴 때 호기심으로 ‘좋아하는 동물’을 몸에 새겼는데, 지능이 발달하고 성장하고 보니 너무 후회되고 싫어서 지웠다고 했다. 그런데 지워도 ‘상처’가 남아서 마음이 괴롭고, 볼 때마다 저주스럽고 무섭고 싫다고 했다. 옷은 잘 안 벗고, 씻을 때는 안 보고 씻는다고 했다.

73. 미인들은 ‘자기 살’을 보여 주면서, 거리로 온 세계로 자랑하고 다닌다. 미인도 살이 없고 말랐으면 미인이 못 되고, 살에 흠이 있으면 미인이 못 된다. <살>이 사람을 그리도 아름답게 한다.

74. 세상에 ‘자기 살같이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귀히 대해라.

<2016년 7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75. <영들>은 머리에만 털이 있고, 몸에는 털이 아예 없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살색 피부다. 자기 육신 같은 살인데, <영의 살>은 그와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럽고 흠이 없다.

76. <완성된 영>일수록 흠이 없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신비하다.

77. <하나님>을 ‘추상과 추측’으로 생각하여, 인종과 턱에 허연 털이 길고 수북하게 났다고 생각한다. 모두 제대로 알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실력대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좋아하며 통한다.

78. <하나님의 마음·정신·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대해 주신다. 사람도 그렇지 않냐. 몸에 이상이 없고 멋있는데, 누가 “저 사람은 다리를 전다.” 하고 말하고 다니면 좋아하겠냐.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 “참 건강하네요.” 하고 알아줘야, 속 이야기를 해 준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 형상>도 제대로 맞춰 대해야, 하나님도 그에 맞게 대해 주신다.

79. <이 세상>과 <영의 나라>는 다르다. ‘자기 행위’대로 형성된다.

80. 자기 욕이 초가집을 좋아한다고 해서 <천국 황금성>에다 그 영을 위해 초가집을 지어 주지 않는다. <천국 황금성의 집>은 ‘기본형’안에서 허락하지, ‘기본’을 벗어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한다고 <영의 몸과 얼굴>에 털과 긴 수염이 나게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신다. 또 자기가 좋다고 <면류관>을 개털 모자로 만든다고 하면 허락하지 않으신다.

81. <천국>은 ‘질서의 세계’다. <영>도 ‘기본형’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더 빛나고 아름답다. <천국의 집>도 그러하고 <면류관>도 그러하다.

82. 월명동에 자기가 좋아한다고 ‘흉한 존재물’을 못 만들어 놓는다. 천국도 그러하다.

83. <천국>은 ‘축소시킨 자기 몸’과 같다. 깨끗이 사용해라. 자기 욕이 행하는 대로 ‘영의 운명’이 결정되어 간다.

84. 자기가 좋아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법’에 걸리면 당세에 욕이 그 대가를 받고, 혼과 영은 영원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다. 영원하다.

85. 가룟 유다는 자기가 좋아하여 예수님을 악평하고 팔았다. 결국 <육신>도 지옥으로 끝났고, <영>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나온다는 기약 없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해하면, 가룟 유다같이 받는다. 처음에는 자기가 좋아서 따르다가도, 하나님의 법과 양심을 떠나 마음이 변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다 운명이 바뀌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된다.

86. 세상에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며 영광을 받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우상으로 칭송받는 자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옥 불에서 1초도 못 나오고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지은 것의 수역만 배’를 받으니, 늦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87. 땅에서 하나님이 ‘양심’으로 깨우쳐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사람’을 보내 깨우쳐 주시고, ‘만물’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법을 떠나 행한 그 세계>에 처해 산다.

88. 하나님은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매일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데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때가 되면 다 심판하신다.

89. 하나님은 ‘더러운 것’만 심판하신다. 깨끗해지려면 ‘회개’해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90. 무지해서 당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법으로 대해서 심판받고, 화평하지 못해서 깨졌다. - 모두 ‘자기 행위’대로 받았다.

91.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을 통해 행하시는데, 무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평하고 막고 해하고 거짓되게 한 자들은 - 이미 <그 영>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그 죄가 엄청나서 돌이킬 기회 없이 끝난 영들도 있다. <육>만 봐서는 모른다. <영계>를 보아라.

92.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일을 시기·질투하고 악평하고 막고 해하고 거짓되게 하다가 -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 <영>도 심판받았고, <육>도 세상에 없는 자들이 있다.

93. 앞으로 계속 보아라.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94.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니, 반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심판하셨다. 지금 그 영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라.

95. <예측과 추측>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다가, ‘자기’도 같이 멸망을 받게 된다.

96. 저마다 <자기 영>이 정말 ‘휴거’됐는지, 정말 ‘생명권’에 있는지 100% 확인하고 살아라. 불안하게 추측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 백 번, 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물어보면 알려 주신다.

97. 구원받고 잘됐다 생각하고 죽어서 영계에 가 봤는데, ‘딴 세상에 가 있는 영들’이 많다.

98. 영계를 보면, ‘수많은 군중 중의 한 명씩’만 <생명길>로 가고 있다.

99. 매일 목숨 걸고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삼위와 대화하고 교통하고,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라. 그래야 <그 영>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확신한다!

100. <자기 행위>를 보아라. 과연 자기 영이 ‘황금성의 생명’인가 알게 된다.

101. 매일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라.

<2016년 7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뭐든지 잊었을 때 즉시 찾아야 생각이 나서 찾게 된다. 생명들도 기억할 때 즉시 찾아야 찾게 된다.

2.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는 만큼 행하고, 생각나는 만큼 계획도 한다.

3. <생각>이 작으면 <활동>도 작다.

4. 생각하는 만큼 ‘일’도 하고 ‘목적’도 달성하게 된다.

5. <행한 자>만 끝까지 남아진다.

6. <행한 자>만 ‘행한 것’이 남아서 존재한다.

7.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도록 <인법>을 정해 놓으셨고,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 혹은 심판을 받도록 <천법>을 정해 놓으셨다.

8.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자기 행위’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

9.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몸은 ‘신경’으로 살아간다.

10. <몸의 신경>이 못 느끼면, 아무 감각도 없고 기쁨도 흥분도 없이 사는 맛을 모르고 살아간다. <생각> 역시 감각이 없으면, 무기력함 속에 맛을 모르고 살아간다.

11. <눈>은 ‘보는 맛’, <귀>는 ‘듣는 맛’, <코>는 ‘숨 쉬는 맛’, <입>은 ‘말하는 맛’으로 살아간다. 이 감각이 약해지고 둔해지면, 살아가는 데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이 없다. 조금만 누리며 살아간다.

12. 손과 발, 몸의 각 지체가 다 행하고 느끼고 즐거워하며 감각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 많이 누리고 사는 자다.

13. 인생의 핵은 ‘생각’이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생각>으로 최고 좋은 것도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좋은 생각과 함께 뜻있게 할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말이다.

14. <뇌>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간 스스로의 생각>은 ‘인간 주관권의 삶’을 살게 하고, <전능하신 삼위의 생각>

과 일체 된 생각>은 땅을 벗어나 ‘영원한 주관권의 삶’을 살게 한다.

15.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대마다 절대로 행하시는 일’과 ‘목적’이 있다. 이 일과 목적을 생각하고 살 때 <육신>도 최고의 생각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되고, <영>도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16. 딴 세상이 옆에서 펼쳐지고 있어도 - 모르면, 자기는 그 반대편 세상에서 살고 있다.

17. 모르고 살면, 참으로 불쌍하고 억울하다.

18. 성령의 감동대로 그때마다 작든지 크든지 행해야 - 리듬이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연속 행하게 된다. 고로 계속 더 좋게 연구하고 차원 높여 행하게 된다.

19. <기획>는 ‘순간’이다.

20. <사랑의 지체>도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해 뵈어도 ‘신경’이 없으면 못 느끼니, ‘창조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고로 ‘존재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지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창조해 뵈어도 ‘신경’이 없으면 <지체>만으로는 ‘기능’도 못 하고 ‘가치’도 없다. 마치 ‘생명이 없고 느낌이 없는 조각’과 같다. <뇌 신경>은 ‘인간의 핵’이다. ‘온 몸의 신경의 핵심지’다. 몸이 있어도 ‘신경’이 둔하면 못 느끼듯이, ‘생각의 신경’이 둔하면 못 느낀다. <인간의 최고 핵심>은 ‘생각’이다. 그다음은 ‘신경’이다. 그다음이 ‘육체’다.

21. <뇌 신경>에서 ‘마음과 생각’이 발생한다. 고로 <뇌>를 들어내면 ‘마음과 생각’이 없어진다. 이는 살았다고 할 수 없다.

22. 사람의 마음에는 ‘육의 마음’과 ‘혼과 영의 마음’이 있다. <육의 마음과 생각>은 ‘육체’로부터 나온다. <혼과 영의 마음>은 ‘혼체와 영체’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육체·혼체·영체’는 한 몸이라서 일체 된다. 고로 <육신>이 죽어도 ‘육의 온전한 마음과 생각’은 <자기 혼과 영>이 그대로 가지고 영의 세계로 간다.

23. 쪼개서 보면, <영체>는 ‘혼과 영’이다. <육체>는 ‘육’과 ‘육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다.

24. 사람이 죽으면 ‘뇌’가 죽고 ‘신경’이 죽는다. 고로 ‘마음과 생각’도 기능을 못 하고 끝난다.

25. <자기 마음>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려면, 그 마음이 ‘혼과 영’에게 넘어가야 된다. <혼과 영>이 살아 있으면, ‘평소 육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 혼과 영’과 함께 영계에 가게 된다.

26.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살다가, 여자가 죽었다 하자. 그런데 여자가 죽었어도 남자가 ‘그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자의 마음과 생각>은 살아 있다. 고로 ‘그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게 된다. <마음과 생각>은 육체·혼체·영체같이 ‘형체’는 없으나, 육체와 혼체와 영체를 ‘움직이게’ 한다.

27. <마음과 생각>은 ‘전기 에너지’와 같다. <형체>는 없는데 ‘핵심 기능’을 한다. 마치 ‘공기’와 같다.

28. <전기>는 ‘형체’는 없지만 ‘존재의 기능’을 하게 한다. <마음과 생각>도 ‘형체’는 없지만, 육체의 주인으로서 ‘육이 기능’을 하게 한다.

29. <자기>가 안 하면,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다. <자기>가 해야 성령도 흥이 나서 더 같이 행해 주신다.

<2016년 7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될 때>는 ‘영적으로 매인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 잠자기 전에 방 정리를 안 해 놓고 자면, 자고 일어나면 어지러운 채로 그대로 있다. 기도를 안 하고 자면, 꿈 혼계에서 사탄과 흑암 편이 자기와 겨루는 자가 되어 싸우는데, 사탄과 흑암 편에 눌리고 매이게 된다. <기도>는 ‘일’이다. 기도하면 ‘그 일을 한 것’처럼 되어 있다.
3. <진정한 기도>는 ‘어떤 일을 두고 매일 자기가 일을 한 것’처럼 일이 되게 한다.
4. <기도>는 ‘입력’이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자기 뇌에 입력하게 된다. 그리함으로 <자신의 정신과 사고>를 자체적으로 굳히게 된다. 고로 <생각>이 ‘행한 것’이 되어 생각의 침범을 받지 않게 된다.
5. <생각>이 무너지든지 <생각>에서 포기하면, 꿈 혼계에서도 <혼>이 ‘생각’대로 행한다.
6. 기도하면, <자기 각오와 생각>이 ‘실체’가 되어 행해진다. 고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과 사고>가 굳어지지 않고, <각오>가 서지 않는다. 고로 <생각>이 ‘무’가 되어, 자기와 겨루는 자들과 사탄이 침범하게 된다.
7. 기도하면 뭐가 다르냐.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뇌에 입력되어, 기도한 대로 <생각>이 굳어진다. 고로 <생각>이 당하지 않고, <육>도 그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8.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산을 넘어간 것’과 ‘못 넘어간 것’과 같은 차이이다.
9. 기도하면, <자기 생각>을 고하게 된다. 고로 고한 대로 <자기 생각>이 굳어진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르다.
10.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각오>한다. 고로 그 생각과 각오대로 실천하여 얻는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 ‘영 구원, 영원한 것’과는 상관없이 산다. <영원한 것과 상관없는 생각과 각오와 실천>이다. 결국 한계를 맞고 끝나게 된다.
11.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려지듯이, 기도하면 <생각>이 ‘그 방향’으로 옮겨진다. 그러면 <육>도 ‘그 생각’대로 행하게 된다.
12. 기도하면 ‘기도하는 쪽’으로 생각과 행실이 흘러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반대쪽’으로 생각과 행실이 흘러간다.
13. <생각>이 무너지거나 흐릿해지면, ‘좋은 생각’이 안 들어간다.
14.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이 무너지면 ‘육’도 무너진다.
15. <자기 생각과 사고>가 ‘그리도 큰 힘’을 발휘한다. <자기 사고>가 강하게 굳어져 있으면, 사탄이 침범해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
16. <자기 생각과 사고>가 자기 인생에 ‘그리도 큰 영향’을 준다.
17. 고로 기도해라. 기도해야 ‘기도하는 쪽’으로 생각과 사고가 돌아가고, ‘기도하는 쪽’으로 사고가 굳어지고, ‘기도하는 쪽’으로 각오하게 되고, ‘기도하는 쪽’으로 행하게 된다. <기도>가 그리 중요하다.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행해야 - ‘행하지 못한 사망권’을 벗어난다.
2. 행한 자는 - 자기가 ‘사망권’을 벗어났다는 것을 안다.
3. 행해야 - 자기가 ‘게으름의 사망권’을 벗어났다는 것을 안다.

4.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하라는 것이다.
5. 행하면 - 삼위일체도 돕고 같이 행해 주신다.
6. 행하지 않으면 - 도울 자도 돕지 않는다.
7. 행하지 않으면 - '차에 시동도 안 걸고 있는 것'과 같아서, 누가 도와도 '차를 밀어 주는 격'인 고로 힘들어서 돕지 않는다.
8. 행할 때 - 시동이 걸린다. 고로 자기 능력보다 더 하게 되기도 한다.
9. 보고할 때 '행한 것 중의 한 가지'만이라도 더하거나 빼고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로 보고할 때는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며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10. 누가 누구에 대해 보고해도 - 보고 올라온 그 사람에게 다 확인하고 공의롭게 결정한다.
11. 수학 문제를 낼 때 숫자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문제를 내야 제대로 계산하여 답을 쓰듯이, 보고할 때도 '양편의 상황'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보고해 줘야 '공의로운 대답'을 해 준다.
12. 서로 빼고 더하여 보고하면, 대답도 각각 해 주게 된다. 고로 답을 줘도 정확하지 않다. <문제>가 정확해야 <답>도 정확하다.
13. 자기 보고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해 줘야 제대로 답을 해 줄 수 있다.
14. 한번은 누가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내용을 보니, 본 교회 목회자가 주일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설교도 안 하고, 주님의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보고였다. 이래서 되겠느냐고 하며, 그 목회자에 대해 몇 가지를 보고했다. 그 목회자에게 편지하여 확인해 보니, 그날 '전 세계 생방송'을 하는 날이라서 직접 생방송 현장에 찾아가서 은혜 받고 더 열심히 하려고 주님의교회에 갔다고 했다. 보고할 때 빼고 하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목회자도 정확히 완전하게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15. <보고>를 잘못하면 <답>도 제대로 줄 수 없으니, <답>을 줘도 그로 인해 심정이 상하고 토라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16. 교회에서도 서로 의논, 서로 대화, 빼지도 더하지도 말고 완전한 보고, 그에 따른 완전한 답을 줘야 된다.
17. 어떤 일을 할 때도 '장단점'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말하며 의논해야, 경영이 파하지 않는다.
18. 서로 잘해서 풀 일인데, 거기서 못 풀고 위에까지 올린다. 그것 파악하는 데만 몇 주씩, 몇 달씩 걸리니 다른 일에 지장이 있다. 서로 의논해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화해해라. 화동해라.
19. 보고해도 '양쪽 모두'에게 속 시원한 답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쪽에 '약점과 단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 저쪽에 '약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만 좋게 해 줄 수 없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과 <실제>는 다를 때도 있다. 그러나 서로 말을 안 하면 모른다. 서로 말해서 풀 일이지, 위에 보고해서 풀 일이나. 평소에 '심정의 날 씨'가 좋을 때, 서로 말하면서 푸는 것이 지혜다.
20. 둘이 토라졌는데 둘이 못 푸니, '주의 심정'이 되어 풀어 주어라.
21. 뭐든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22. 완전히 행하면, 문제가 없다.

23. 혹여 상대가 오해하고 말하더라도, 자기가 완전히 행했으면 잘못이 없으니 담대하다. 오히려 확인한 후에 좋게 알려진다.

24.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도 ‘실제’는 다른 것도 있다. 이때 문제가 생긴다.

25.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어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모르고> ‘크게’ 도와 심정 상하게 하는 것보다, <알고> ‘작게’라도 심정 맞게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26. <내용>보다 <심정>이다.

27. 잘해 줘도 ‘심정’ 거스르면, 안 해 준 것만 못하다.

28. <마음>이 ‘보화’다. ‘선물’이다.

29. 마음의 보화, 말의 보화, 행동의 보화다.

30. 삼위일체와 주 앞에도 <마음과 말과 행위>가 ‘선물’이며 ‘사랑’이다. 고로 온전한 마음, 온전한 말, 온전한 행위로 대하여라.

31. 작은 일에도 서로 심정 거스르지 말아라. 심정 거스르면 멀어진다.

<2016년 7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잘돼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안 돼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2. 그러나 그 일이 지나고 분석해 보면 왜 잘됐는지, 혹은 왜 안 됐는지 근본을 알게 된다.

3. <뇌>는 확대하면 <육신>이다.

4. <육>을 보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다.

5. 잘될 때는 ‘조상이 도왔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친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내 복이다.’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6. 안 될 때는 ‘조상이 막았나? 하나님이 막으셨나? 누가 막았나? 정성이 부족했나?’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는 생각하기를 거부한다.

7. 잘될 때와 안 될 때, 사람의 생각은 ‘극’으로 치우쳐 각종으로 생각하게 된다.

8. <잘되는 것의 핵>은 ‘자기 자신’이다. <안 되는 것의 핵>도 ‘자기 자신’이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도 도우시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얻게 된다. 하늘 앞에도 잘하고 땅 앞에도 잘하면, 그 상대인 하늘도 땅도 순리대로 잘 풀어진다.

9.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조상이 막았나? 조상이 안 도왔나? 하나님이 안 도우셨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한다.

10. <흥망(興亡)>은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11. <흥망의 출발 장소>는 ‘뇌’다. ‘생각’이다. ‘행동’이다.

12.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잘되면, “내가 믿는 신이 도왔다.” 한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기면 심판이다. 멸망이다.” 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되도록 - 하나님은 ‘창조의 법’을 정해 놓으셨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된 것이다.

13. 누구든지 ‘아무도 안 믿으면서’ 걸어가 보아라. 농사지어 보아라. 과일나무를 심어 보아라. 공부해 보아라. 행해 보아라. 모두 ‘행한 만큼’ 얻는다. 하나님은 행하면 얻고, 행하면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그 터전 위에 ‘하늘의 도움’이 온다.

14. 누구든지 ‘하나님이나 우상을 잘 믿으면서’ 누워서 가만히 있어 보아라. 가만히 있으면 곡식도 자라지 않고, 과일나무에 열매도 안 열리고, 천 리 길도 못 가고 제자리다. 전능자를 믿고 살아도, 각종 우상을 믿고 살아도 ‘자기가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15. 전능자가 인간을 창조하실 때 - 일점일획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되고 안 찾으면 안 되게 창조하셨고, 인간으로서 할 일은 자유의지를 주어 하면 얻고 안 하면 못 얻게 창조하셨다.

16.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부모를 통해 자녀를 낳아 제2창조’를 하게 하셨다. 그러나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부모를 ‘믿으면’ 다 되고, 부모를 ‘안 믿으면’ 안 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자녀가 부모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으나 <인간으로서 할 일>은 자기가 행하는 대로 되게 창조하셨고, 안 하면 안 되게 창조하셨다. - 이것이 순리의 법이다.

17.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된다.”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빌딩 사고, 땅 사고, 각종 향락을 누리며 잘된다.”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자기 행위>대로 ‘선’, 혹은 ‘악’으로 받게 된다. 육과 영이 모두 잘되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인간으로서 할 일을 행해야 된다.

18. 하나님은 뭐든지 인간이 행하는 대로 되게 창조하셨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한 선악의 대가>는 받도록 창조하셨다.

19.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유의지’다. 고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다. 자기가 원하면 믿고, 원하지 않으면 안 믿게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육적’으로도 축복을 받지만, 근본은 ‘영적인 것’을 핵으로 축복을 받는다.

20.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기에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니 일이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했다. 그 사람의 소식을 들어 보니 교회 다닐 때는 못 얻던 것들을 지금 많이 얻고 있다고 했다. 생각나면 하나님도 찾는다고 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도 <육적인 것들>을 얻듯이 얻고 싶은데, 못 얻는다고 했다. 교회 다닐 때는 교회만 다니면서 사회 일을 안 하니까 ‘그 행위’대로 <육적인 것들>은 못 얻고 <영적인 것들>만 얻은 것이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사회 일’만 열심히 하며, 목부터 머리까지 안 보이게 거기에 빠져 있었다.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만 생각하고 교회에 못 오는 것이었다. 목회자는 ‘생명들’을 위해 세웠으니, 이런 문제를 풀어 주어야. 그런데 모르고 산다. 이 사람같이 ‘사회 일’을 하면 <육의 것>을 얻는다. 그러나 <영의 것>은 못 얻는다. 그러나 ‘신앙’을 하더라도 ‘사회 일’을 안 하면 <육의 것>은 못 얻는다. 그러나 <영의 것>을 얻고, <신앙 속에서 얻는 육적인 것>도 얻게 된다.

21.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재벌도 되고, 명예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된다. 신앙의 길만 가는 사람들은 신앙을 함으로 인해 ‘사회 일’에 전력을 쏟지 못한다. 고로 ‘그들이 얻은 만큼’은 얻지 못한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영원한 것>은 절대 못 얻는다. 또한 <신앙 속에서 얻는 육적인 축복>도 얻지 못한다.

22. 인생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육적인 것>도 얻고, <영적인 것>도 얻고,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도 얻는다. 고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안 믿고 잘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좋다. 아무리 ‘육의 재물’을 누려도 보통으로 사는 자들보다 3배 이상 못 먹는다. 좋은 옷도 두 개, 세 개 끼입고 다니지 못한다.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고통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산 자들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사랑받고 누리며 산다.

23. 사람들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

24.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해 알고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으면, 인간은 아예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

25. 자기를 낳아 준 부모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살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여 잘되기도 한다. 때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산 자들보다 더 잘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 사랑, 부모 재산, 부모의 가르침은 못 받고 못 누린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26.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적으로도 잘하고 영적으로도 잘하면 ‘둘 다’ 잘되고 ‘둘 다’ 얻는다.

27. 하나님을 믿어도 <육적인 것>을 안 하면 못 얻는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육적 축복>을 받는다.

28. 섭리사를 보아라. 삼위와 주를 믿고 사랑하면서 <영적>으로만 받고 있느냐. <육적>으로 못 받았다면 모두 굶어 죽었을 것이다.

29. 섭리사 모두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도 잘되었다.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36. 한번은 서류를 쭉 보는데,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나오라고 편지해 주었다. 본인의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 키가 큰 것이 자기 인생 최고의 걱정이라고 했다. 매일 고민하며 산다고 했다. 키가 너무 크니, 중학생 때부터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면서 키가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하도 수그리고 다니니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했다. 여자인데 키가 183cm이었다. 자기는 키가 커서 걱정이라 하지만, 섭리사에서 ‘키 큰 왕 10위 안’에도 못 들어간다. (섭리사에서 ‘키 큰 킹’은 서울에 있다. 누구나 보면 다 안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키가 너무 커서 걱정이고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네가 내 키를 제일 많이 따라온다.” 하시며,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며 나와 통하자. 나 네 옆에 있다.” 하셨다. 성령이 계시도 자주 주신다.) 키가 커서 힘들어서 교회에도 안 나오고 생활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결국 잘 가르치고 인식시켜서 다시 신앙을 잘하게 해 주었다. 요즘에는 1cm라도 키가 더 크기를 원했다. 그래서 목을 쭉 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섭리사 키 큰 킹 10위 안’에 못 들어온다. 세계에서 각종 사람들이 몰려온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보통 185~189cm의 사람들이 온다. 왜 그러도 ‘키와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냐.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외모가 어떠하든 <자기 개성>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기뻐하며 살아라.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다. 키가 작으면 목을 빼고 무릎을 펴고 허리를 세우고 다녀라. 그러면 3cm는 더 커 보인다. 그리고 3~5cm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녀라. 그러면 총 5~8cm는 더 커 보인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다. <차원의 키>다. 육신 키는 문제가 아니다. 영혼은 다 키가 크다. <생각 차원의 키, 혼과 영 차원의 키, 휴거 차원의 키>를 높여라. 이 키는 정말 커야 된다.

37. 거리를 보면 키 큰 사람보다 키 작은 사람이 더 많다. 각자 본인들이 선호하는 대로 산다.

38. 저마다 뭔가 <인식을 잘못하고 사는 것>이 있는지 보아라. 그 끈을 끊어야 뇌에다 ‘주의 뜻’을 달고,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다.

39. 저마다 <생각의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풀어야, ‘자기가 원하던 그 센터의 꿈’을 이룬다.

40.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 마치 ‘자물쇠로 잠근 것’ 같아서, 그 마음 안에는 ‘삼위일체’도 못 들어간다.
41.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인식이 풀어지게 해 주어라.
42. 자기 등의 때는 자기가 못 민다. 서로 ‘<인식>이라는 절어 있는 때’를 밀어 주기다. <몸의 때>도 밀지 않으면 평생 가듯이, <잘못된 인식>도 풀지 않으면 평생 간다.
43. <인식이라는 못>이 ‘뇌’에 한 번 박히면 10년, 20년까지 가고, 어떤 것은 평생 간다.
44. <키나 외모에 대한 잘못되고 더러운 인식의 때>도 다 밀어 없애라. <나는 못 한다. 안 된다. - 하는 인식의 때>도 다 밀어 없애라. 10년 동안 안 씻은 몸을 씻듯, 10년 동안 안 자른 머리를 자르듯 해라.
45. <인식>은 ‘상대’로부터 오고,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것’으로부터 오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온다. 하나님께 묻고 100% 알고 했으면, ‘잘못된 인식’이 안 왔다.
46. <주를 향한 그릇된 인식>을 다 뽑아 없애라.
4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향한 그릇된 인식>을 다 뽑아 없애고 삼위일체를 대해라. 그래야 얻을 것을 얻는다.
48. 좋게 인식하고 확인하면, 쉽게 풀린다.
49. <지상 지옥이라는 감옥>도 좋게 인식하고 대하면 ‘천국’으로 쓴다.
50. 자기 머리가 둔하다고 인식하고 안 하면 안 된다. 자기는 치타같이 빠른 체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안 하면 안 된다. 동물도 거북이로, 토끼로, 개로, 낙타로 다르게 태어나듯, 인생도 각자 다르게 태어난다. ‘치타 체질’은 따로 있다. 이것은 타고난다. -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많다. 이 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인간을 동물로 비유하지만,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 <동물>은 ‘발달돼도 동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발달하면 신’이 된다. 왜? ‘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 창조해 놓으셨다.
51. 몸이 게으르고 느려도, 고치고 빨리해 버릇하면 ‘치타’같이 된다.
52. 훈련해라! 게으른 자도 뱀이 자기에게 오니 ‘치타’같이 빠르게 뛰어 도망갔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빨리할 수 있는 지능과 뇌’가 있다 함이다.
53. 훈련해라! 개가 물려고 쫓아오니 평소에 그리도 느린 사람이 개보다 더 빨리 움직여서 개를 걷어차고 위기를 넘겼다. 그것을 보면 ‘누구나 빨리할 수 있는 지능과 뇌’가 있다 함이다.

<2016년 7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할 일>을 깨끗이 해야, 내 집 옆에 흐르는 냇물이 깨끗해지듯 그리 된다.
2. 쓰기 편하게 뜯고 없애듯, <필요 없는 것들>을 소각해야 ‘자기 생활 주변’이 깨끗한 정원같이 된다.
3.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는다.
4. 섬세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큰 그물망에 작은 고기 빠져나가듯 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것>에 불이 붙어서 행해야 - 삼위도 더욱 돕고 역사하신다.

6. 인생 앞에는 항상 ‘두 길’ 뿐이다. 인생들은 ‘둘 중의 한 길’을 가게 된다. <삼위가 원하시는 길>과 <자기를 중심한 자기 의지의 길>이다.
7. <삼위가 원하시는 길>을 가더라도 깊이 있게 강한 마음과 열정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 그 길을 벗어나 <자기 길>로 가게 된다.
8. 매일매일 ‘그 날의 기회’가 온다. 매일 이기고, 그 기회를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9. 혼계와 영계를 보면, 사탄이나 귀신이나 방해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수십 가지 울무’를 놓고 방해하고 묶고 고통을 주어 ‘가는 길’을 못 가게 한다. 고로 사탄과 마귀를 멸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기도는 일이다. 일한 것은 되어 있고, 안 한 것은 그냥 있다. 기도는 입력이다. 기도하면, 기도한 말대로 된다. 영계에서는 ‘기도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10. <혼계>는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듯, <혼계>를 통해 자기 혼을 보면 ‘자기 육의 상태’도 알게 된다.
11. <한 가지>에만 빠져서 그것만 하면, ‘전체의 10분의 1’만 하는 것이다. 그 면으로만 발달되고, 그 면만 해결되고, 그 면만 이루어진다. <전체>를 골고루 해라. 삶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다.
12. 신앙생활도 ‘골고루’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시간을 골고루 써라. 삶도 그러하다.
13. <삶의 모든 것의 비율>을 골고루 배치하여 행하기다.
14. <한 가지>에만 그렇게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는 낭비다.
15. 신앙도 ‘골고루 시간을 투자’하여 해야, 때가 되면 골고루 얻는다.
16. 가령 운동을 할 때 한 시간이 있다 하자. 한 시간이면 ‘세 가지 운동’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뛰는 운동, 근력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세 가지를 골고루 하면 그만큼 좋다. 한 가지만 하다 보면 지루하고 물리고 지치고, 몸도 그 면만 좋아진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신앙도 그러하다. 저마다 ‘골고루 분산’해서 해야 안 지치고 진수성찬 먹듯이 신앙의 삶이 맛있다. <한 가지 개성의 왕>보다 <열 가지 개성의 왕>이 되게 행하여라.
17. 월명동도 ‘한 가지’만 만들지 않았다. 돌, 나무, 잔디, 호수, 운동장, 산책로 등 다양하게 골고루 구상하여 개발했다. 돌만 쌓으면 삭막하고, 나무만 심으면 밀림이 되고, 물만 있으면 바다가 되고, 운동장만 있으면 운동만 하고, 잔디만 있으면 초장만 되고, 산책길만 있으면 산책로만 된다. 골고루 다 있어야 아름다움과 조화로움과 신비함이 생긴다. <신앙의 삶>도 그렇게 살아라. <한 가지 개성의 왕>보다 <열 가지 개성의 왕>이 되게 행하여, 더 빛을 발하여라.

<2016년 7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는 시간>은 ‘확인하는 시간’이다.
2. 기도할 때는 집중해라. 삼위께 집중하고, 자기가 삼위 앞에 하고자 하는 말에 집중해라.
3. 기도하면서 집중하면, ‘세상 것’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하게 된다. 그때가 ‘<생각>으로 확인하고 간구하며, 삼위께 응답받고 확인하는 시간’이다.
4. 일할 때도 수시로 집중하고 정신일도 하면서 ‘하고 있는 일에 실수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된다.
5. <기도하는 시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눈으로 쳐다보듯 생각의 눈으로 쳐다보는 시간’이다.

6. 기도할 때 ‘생각의 눈’으로 보고, 본 것을 느끼고, 삼위와 주와 함께 그 생각을 판단하게 된다.
7. <눈을 뜨고 육의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과 <눈을 감고 집중하여 마음의 눈, 혼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비교하고 연구해 보아라.
8. 말씀이나 잠언을 받을 때도 영계의 입구에서 쳐다보고 그 차원의 말씀을 받는다. 1차원이다. / 거기서 더 정신일도 해야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깊은 말씀을 받는다. 2차원이다. / 거기서 더 정신일도 하면 더 깊이 들어가서 최고 차원의 말씀을 받는다.
9. <깊은 계곡>에 깊이 들어가야 ‘더 맑은 물과 아름다운 지형’을 보게 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들어가야 볼 수 있다. <정신계, 혼계, 영계>도 그러하다. 더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더 깊고 오묘한 것’을 보고 깨닫는다.
10. <첫 번째 기회>에는 ‘손’으로만 해도 할 수가 있으나, 그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 기회>에 하면 ‘손과 발’이 같이 해야 할 수 있다. 그 기회까지 놓치고 <세 번째 기회>에 하면 ‘온몸’으로 해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다음에는 아예 못하고 끝나기도 한다.
11. <성삼위께 영광 돌리는 기간>에는 ‘찬양과 예술제’만 하지 말고, ‘자기 잘못된 사고와 인식관을 고치며 성삼위께 영광’ 돌려라. 그래야 삼위일체가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신다. (기억하고 행해라.)
12. 흠 없이 모순 없이 ‘깨끗한 영광’을 돌려라.
13. 음식도 흠 있고 더러우면 못 먹는다. <영광>도 그러하다.
14. 모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15. 사슴이 ‘침녕쿨’에 얹히니 소리만 지르고 주저앉아 굶고 있다. 힘이 없으니 머리를 땅에 처박고 침을 질질 흘리며 두 다리를 뻗고 잠만 잔다. 결국 불쌍하게 되었다. <침녕쿨>을 ‘사람이 놓은 올무’로 생각하고 포기한 것이다. 조금만 헤치면 나올 수 있는데, 몰라서 불쌍하게 되었다. 사람들도 그런 자들이 많다. 인생을 살면서 ‘침녕쿨에 얹히듯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올무’로 생각하고, 안 된다 판단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 조금만 헤치고 나오면 될 것인데, 몰라서 못 하고 포기한다. 그래서 모르면 불쌍하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안 좋아하면, 주고도 아깝다.
2. <대칭>은 ‘대상’이다.
3. <육>과 <영>도 대칭이다.
4. <육>과 <혼>도 대칭이다.
5. <좌 벽>과 <우 벽>은 대칭이다.
6. <원>도 ‘수평’으로 보면 대칭이다. (초안)
7. <사람>도 ‘대칭형’이다.

8. <대칭>이 이루어질 때, ‘구상’이 아름답다.

9.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나같이 고생하며 산 사람도 없다.” 하며 푸념한다. - 아니다. 나름대로 재미있게 삶을 살았다.

10. 과거에 개죽을 먹으며 살았든지, 식물을 뜯어 먹으며 살았든지, 각자 나름대로 ‘사는 재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살았다. -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11.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터전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것이 크고도 크다.

12.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태양을 주고, 지구 세상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땅을 주고, 만물들을 주셨으니, 인생들이 고생하며 살았어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 그것이 삶의 재미다.

13. 아무리 탄 고생과 어려움이 없어도 - <삶의 절대 기본>인 태양이나,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땅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삶의 맛도, 재미도 없고 서서히 끝이 난다.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다 해 주셨으니, 고생되고 어려워도 인생들은 살 수 있고, 사는 재미가 있다.

15. 고생돼도 고통을 겪어도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16.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 지구, 태양, 공기, 물, 불,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인간이 살 만한 ‘적절한 기후와 온도’를 주셨다. 고로 인생들이 고생하며 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역적이고 불법자다. <사는 것>은 ‘자기 삶’이니, 자기가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 인간이 가지고 살 수 있는 ‘몸’까지 주셨으니, 하나님이 안줬다고 원망하는 자는 무지한 자요, 그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더 얻지 못하게 된다.

17. 고생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 수 있는 몸과 터전과 여건’이 있음에 감사하며 ‘삶의 재미’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신앙도 그러하고, 휴거의 삶도 그러하다.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휴거된 자>는 ‘휴거된 자의 권위’를 지켜야 된다.

2. <하늘 신부>라고 해서 ‘사랑’을 합리화시켜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3. <사랑>도 ‘육’으로 생각하면 ‘이성’이고, ‘영’으로 생각하면 ‘영성’이다.

4. <권위를 지키는 자>는 그만큼 ‘권세’가 있다.

5. <휴거의 권위>를 지키는 자는 그만큼 ‘휴거의 권세’가 있다.

6. 하늘 신부로서 <영적 사랑의 권위를 지키는 자>는 그만큼 ‘사랑의 권세’가 있다.

7. 하나님이 귀히 부리던 천사장도 ‘자기 권위’를 지키지 못하여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

8. <육에 속한 자>는 ‘육적인 것들’을 그리도 귀히 본다. 그러니 ‘육적인 것들’과 일체 되어 같이 행하게 된다.

9. <육적인 세계>에 속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육적’으로 대한다. 그런 자는 삼위께 합당하지 않으니, 삼위와 통하지 않는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으로 통해야 된다. ‘영으로 통해라.’ 함은 - ‘육성’으로는 못 통한다 함이다. 곧 ‘육적인 생각’으로는 못 통한다 함이다.

11. <육의 생각과 행위>는 소각하고, <영의 생각과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 삼위와 통한다.

12. <삼위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고로 인간이 삼위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면 은혜가 안 되고 고통과 고생이다.

13. 인간이 <삼위의 생각>대로 행하면 쉽고, 은혜가 되고, 고생과 고통도 없고, 순리가 되어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14.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15. <영>에 속해 행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같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시어 ‘같이’ 행해 주신다.

16. <자기>가 ‘완전’하게 행해야 <자기를 따르는 자들>도 ‘완전한 데’로 옮겨 놓는다.

17. <육>에 속해 있으면 ‘영의 것’이 많이 지나가도 못 느끼고 못 잡는다.

18. <영>에 속해 있어야 ‘영의 것’을 많이 보고 잡는다.

19. <권위>를 상실하면 ‘주권’을 뺏기게 된다.

20. 일주일이 넘도록 혹독하게 아팠다. 뼈저리게 아팠다. 그러면서 깊이 깨닫고 ‘육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왔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알게 되었다. <섭리 체제>와 <수련회 방향>이었다.

21.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행하면, ‘신’이 되어 살아간다.

22. <육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어 <영의 생각>으로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사는 자’다.

23. <육성>을 가지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시켜 행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24. 똑같이 행해 났어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한 것’이지, <저것>은 아니다.

25. <한 명>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섭리 전체>를 보고 행하여라.

26. <한 지체>만 관리하면, 아무리 100% 완벽하게 관리했어도 <나머지 수백 개의 지체>는 기능이 약해진다. 그러다 결국 ‘죽음의 병’이 찾아와 뼈저린 고통을 겪게 된다.

27. <섭리 전체 각 교회들>이 튼튼해야 된다. 이는 마치 ‘각 지체 모두’를 살피 튼튼하게 하는 격이다.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28.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육>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인간의 영>도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져 ‘천국’에 가게 된다. 모두 ‘말씀’으로 만들어진단다.

29. 역사를 보아라. <말씀>이 끊어졌을 때 백성들이 ‘갈 길’을 몰랐다.

30. <말씀>이 끊어지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하니, 모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
31.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32. <메시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새 시대 새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전한다. 그 ‘말씀’을 전하고 행하게 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건설해 나간다.
33. <하나님이 주신 새 말씀>이 없으면, ‘옛날에 주신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옛 주관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34. <시대 말씀>으로 ‘하늘 신부’까지 된 것이다.
35. 선생이 먹을 것이 없어 70일을 굶었을 때 피골상접이 되었다. 거의 죽을 뻔했다. 그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육신>도 ‘양식’을 안 먹으면 누구나 피골상접이 되듯이, <영혼>도 그러하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골상접한 영이 된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36. 이번에 일주일 동안 39도 이상 열이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혹독하게 아팠는데, 그 원인이 3년 동안 한 끼만 겨우 먹고 너무 무리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누적되어 쓰러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말씀>도 그러하다. 그 정도만 주면 안 된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 모두 기갈 들어 쓰러진다. 네가 다른 일을 더 하기보다 <말씀>을 더 줘야 된다.” 하셨다.
37.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38.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 행하지 않는다. 고로 죄를 지은 자다.”
39.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다.
40.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
41.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해도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42.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는 - 결국 ‘사망’으로 간다.
43. <영에 속한 자>도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매일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조금씩 ‘육성’으로 행하다가 결국 <육에 속한 자>가 된다.
44. <육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받아도 ‘육적’으로 행하게 된다.
45. <육>에 속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의 생각’이다. 그리고 매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라. 그래야 ‘자기 주관’으로 빠지지 않는다.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46. <온전한 자>만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
47. <온전한 자>만 ‘온전한 것’을 알게 된다.

48. <최고 위치>에 갔을 때에야, ‘이전에 한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49. <천국 황금성, 신부성>에 가 보지 않은 자는 ‘자기가 있는 낙원 천국’이 최고인 줄 안다. <자기 행위대로 정해진 그 위치>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은 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
50.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위치>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같이, 영의 세계에서도, 현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그 이상의 영의 세계, 그 이상의 신앙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만족한다.
51. <이 세상>에도 ‘재벌’이 있듯, <신앙 세계>에도 ‘신앙의 재벌, 영의 재벌’이 있다.
52. <이 세상의 재벌>은 ‘이 세상’에서만 누리다 끝나지만, <신앙의 재벌, 영의 재벌>은 ‘영원히’ 누린다. 끝이 없다.
53. <이 세상의 재벌>은 되기 어려워도 <신앙의 재벌, 영의 재벌>은 되기 쉽다. <이 세상>은 ‘돈’으로 재벌이 되지만, <영의 세계>는 ‘의’로 재벌이 된다. <의>를 행할수록, ‘의의 재벌’이 된다.
54. <휴거의 빛난 영>이 되고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말씀’을 귀히 여겨라!
55. <하나님의 말씀 한 마디>가 그리도 크다. 그 ‘한 마디’를 지킴으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56.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오고, 행할 때 ‘권세’가 온다. <말씀>을 외칠 때 ‘능력’이 온다.
57.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깨닫고, 기도하며 각자 매일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58.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아야 된다. ‘숨 쉬는 것’같이 필요하다.
59.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자>는 ‘정으로 큰 바위를 뚫고 들어가려 하는 자’같이 힘들게 행하는 자’다.
60.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는 자>는 ‘이미 뚫린 천연 굴로 들어가는 자’와 같다. 고로 쉽게 순리적으로 행한다.
61. 내가 빠져린 지옥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도 성령님도 좋게 되었다. 섭리사도 좋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일체 되었기 때문이다.
62. 인생 일생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살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게 만들고 행해야 - 지상에서도 ‘육’이 천국의 삶을 살고 ‘영’도 천국의 삶을 산다.
63. (하나님) ‘네’가 온전해야 ‘온전한 기도’가 나온다.
64.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면, 행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삼위일체는 마치 ‘앞에 흐르는 강물’과 같다. 자기만 나가서 씻고 수영하면 되듯이, 우리만 행하면 된다.
2. 앞에 <흐르는 강물>이 있어도 자기가 나가서 그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삼위일체 앞에도 마찬가지다. <삼위일체>는 항상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행하여라.
3. <목적>을 정해 놓고 행해라. 그러면 <다음 차원>으로 가게 된다.

4. 누구든지 <앞의 산>을 넘지 않으면, <다음 산>을 넘지 못한다.
5. 누구든지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
6. 저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
7. 능력이 있어도, 안 하면 못 한다.
8. 매일 행해야 '행하는 능력'이 커진다.
9. <자기>가 할 때, 주체가 되는 <삼위일체>도 하신다.
10. <자기>는 안 하는데 <삼위일체>만 하면, 뜻을 못 이룬다.
11. <같이> 하려면, '네'가 해라.
12. 사랑도 그러하다.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다.
13. 가령 사랑하는 자에게 먼 길을 가자고 했다 하자. <상대>가 안 가는데 <자기 혼자> 가겠느냐. 삼위일체도, 주도 그러하다.
14. 할 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해라. 그래야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다.
15. 성령님과 둘이 있어도 안 하면, 되는 것이 없다.
16. 행해야 창조된다.
17. 행해야 느낀다. 기쁘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18. 네가 소원을 이루려면, 행해라.
19.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해라.
20. 무엇을 할 것인지 떠오르면, 행하기다.
21. <행하는 자체>가 '얻는 것'이다.
22. 육계에서든지 영계에서든지 '제대로 안 한 것'은 제대로 안 된다.
23. <제대로 안 쓴 글씨>가 자동적으로 고쳐지겠느냐. 언제라도 제대로 다시 써야 그 글씨가 제대로 되어, 모두가 제대로 보게 된다. <자기 행위의 글씨>다. 제대로 바로 해라. 그래야 제대로 된다.
24. <자기 삶>은 '자기 말'과 같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말해지듯, 자기가 행하는 대로 삶이 된다.
25. <글>을 읽을 줄 알듯이 <자기 행실의 글>을 읽을 줄 알아라. 그리고 분별도 하고 고치기도 하면서, 정확히 살기 다.
26. <글을 쓸 때> 쓰기만 하지 말고 '내용'이 잘 써지나 보면서 쓰기다. 이와 같이 <행할 때>도 그냥 행하기만 하지 말고 '목적'대로 잘 행하고 있는지 보면서 행하기다.

27. <꿈>에서 아쉬운 것은 <생시>에서도 아쉽다.
28. <꿈>을 아쉽지 않게 꾸려면 - <생시의 삶>을 교정하고, 아쉽지 않게 기도하고, 철저히 행하여라.
29. <잘 사는 법, 잘되는 법>을 주가 말해 줘도 왜 행하지 않느냐.
30.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31. <집중>하지 않으면, '생각의 다른 길'이 많이 나타나 '갈 길'을 못 가게 된다.
32. 길을 찾고도 <집중>하여 가지 않으면, 그 길에서 흐지부지하고 끝난다.
33. 다 할 때까지 -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하기다.
34. 매일 '그 날의 기회'가 온다.
35. <그 날 할 일>을 못 하면, 기회가 끝나 버린다. <다음 날>에는 '다음 날의 기회'가 온다.
36. 매일이 '삶의 기회'다.
37. <신>은 행한다! <신>이 되려면 행해라!
38. <신>이 돼야 '신'과 통하고 교통한다.
39. 자기 의지와 자기 추측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 고로, 성령과 주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확인하여라! 말씀으로 확인, 기도로 확인, 육성을 버리고 영성으로 확인이다.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보다 만 배나 더'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시고 사랑하며 관리하신다. - 사람의 육신도 영도 한 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이다.
2. 귀한 천연기념물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고로 '귀하게 관리'해야 된다.
3. <귀한 것>에 대하여 '생각의 차원'이 낮으니,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여 관리를 못 한다.
4. 사람이 자기가 안 좋아하면, <귀한 것>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5. 성령님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물으니, "사람의 생명이다." 하셨다.
6. <귀한 생명들>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많이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해야 된다." 하셨다.
7. <사람의 생명>이 귀하지만, '귀하게 쓰여야' 귀하다.
8.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는 '인간의 지체'를 그에 해당되는 대로 평생 귀히 쓰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손>도 일생 동안 수만 가지를 하면서 써도 닳지 않고, <눈>도 <귀>도 <입>도 그렇게 쓰고 또 써도 닳지 않는다. 다만 다치지 않게 쓰고, 약해지면 치료하고, 평소에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귀히 봐야 된다.

9. 관리하는 대로 강해진다.

10. 하나님은 <인간 육의 생명 기간>을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으로 딱 정해 놓지 않으셨다. 다만 '130세 이상씩 한계 이상까지는' 살게 하지 않으셨다. '육의 삶은 기한'이 있다. 그러나 '한계 안'에서 건강하게 더 오래 살도록 각자 관리하게 하셨다. 고로 옛날에는 거의 60~70세가 되기 전에 죽었지만,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되고 잘 먹으니 80~100세까지 살고, 더 나아가 120~130세까지도 산다. <자기 생명>도 잘 관리하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하나님도 이를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11. 선생의 어머니도 98세까지 사셨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숨도 못 쉬셨고, 온몸은 거동을 못 하셨고, 가족들의 얼굴도 못 알아보셨다. 계속 관리했기에 거기까지 사신 것이다. 이에 성자는 "더 살기에 고생되고 고통스러우니 데려가야 되지 않겠냐." 하셨다. 사람이 관리하는 만큼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더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젊으나 나이가 들었으나 '데려가는 것'이 뜻이다.

12. 오래 살고 싶으면,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13.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단명'으로 예정해 뒀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아라.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막으신다.

14.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인데 '관리'를 못 해서 오래 못 살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신다.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업도, 장사도, 인생도 '별이기'에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간다.

2. 한 번 별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된다.

3. 보고 확인하고 별여라.

4. 하루를 사는 것도 '어디에 별이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해가 진다.

5.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어디에 생각하고 별이느냐'에 따라서 일생동안 그것을 하게 된다. 그러다 인생의 해가 진다.

6. 한 번 별이면, 돌아서 못 온다. 일단 별인 대로 끝까지 가야 된다. 다 가고 난 후 별로이면, 그때 다시 다른 것으로 별이게 된다.

7. 인생, '별이는 대로' 살게 된다.

8. 모든 인생들은 '별인 대로' 희로애락을 겪으며 행하며 살아간다.

9. 잘 별여라. 처음에는 좋아서 별였으나 과정이 어떻게 될지,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살아가면서 점점 좋은지 나쁜지 알게 된다. 좋아도 나빠도 '별인 대로' 살아간다. 사업이든, 장사든, 농사든, 정치든, 예술이든, 종교든, 인생이든, 사랑이든 - 좋아도 나빠도 '별인 대로' 살게 된다. 고로 잘 별여라!

10. <우상>에 별였으면 '우상'과 함께 살다가 망하고, <하나님>께 별였으면 '전능자'를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간다.

11. 삶은 비슷하다. 그러나 '잘못 별인 자'는 가다가 구름같이 사라지고, '잘 별인 자'는 영원히 누리며 살아간다.

12. 방금 TV 화면을 보니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에서 인생을 별였다. 그곳에 한 집을 사서 한국식으로 깨끗이 꾸며

놓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이제 ‘별인 대로’ 장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13. 인생은 ‘별인 대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

14. 역전에서 ‘그 열차’를 타면, 일단은 별인 대로 ‘그 열차가 가는 곳’까지 가야 된다. 중간에 뛰어내릴 수도 없다. 다 간 후에 그제야 다시 생각하고 ‘다른 열차’를 타야 된다. 하지만 노선이 비슷하다. - 고로 처음에 잘 벌여야 된다.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2. 메시아와 사람이 다 같되, 그 생각이 다르다. 고로 그 생각을 말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알 수가 없다.

3. 하나님은 땅에 보낸 구원자의 육신을 쓰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비밀을 말씀하시고, 심판도 축복도 다 행위 대로 시대와 민족과 세계에 행하신다.

4.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과 천지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

5. 자기 생각, 성자 생각, 타인의 생각, 이 세 가지 생각으로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6. 생각 차원이 낮아도 누구의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7. 평생 한 번 본다고 생각하고, 볼 때 제대로 보아라. 그래야 언제든지 제대로 생각난다.

8. 생각을 잘못하면 하루에도 시간을 허송하고 남는 것 없이 끝난다.

9. 자기 생각을 결정하기에 따라 천국도, 지옥도 자기가 가게 된다.

10. 안 하겠다고 하는 자도 필요성을 깨닫게 해 주면 누가 막아도, 돈 쓰면서도 한다.

11. 생각이 방향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12. 인생은 존재하는 한, 생각과 행위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변수가 있게 된다.

13. 생각을 집중하면 잡념이 올 수가 없다.

14. 삼위 절대신은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포기’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허용을 않으신다.

15. 실패하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다시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

16. 너는 포기하고 낙심하였어도 하나님과 주는 포기 안 했으니, 너만 하기만 하면 된다.

17. 네 차원에서 다음 차원의 과정으로 가야, 다음 차원의 희망이 보인다.

18. 한 차원 더 오르면 완전히 딴 세상이다. 네가 얻으며 놀라, 감격해 기뻐 잔치한다.

19. 조금 더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20. 실패하였어도 방법을 달리하며 끝까지 해라.

21. 끝에 있다. 끝장내라.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뜻 있는 곳>에 ‘마음’이 꽃힌다.

2. <죄지은 자>가 ‘회개’해야 기쁘듯이, <은혜 받고 도움 받은 자>가 ‘영광’ 돌려야 기쁜 것이다.

3. <자기 사랑하는 자>가 해야 기쁜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시다.

4. <삼위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일해라.

5.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것이 ‘이성, 동성’이다. 그다음이 ‘성격’이다.

6.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제일 ‘핵’으로 보신다. <육적인 것>과 <외모>는 ‘결눈질’로 보신다. 핵인 <생각>과 <마음>과 <행실>은 ‘자세히 이리저리’ 보신다.

7. <육>을 보고는 평생 기쁘게 살지 못한다.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봐야 평생 기쁘게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8. <생각과 사고>가 별로이니 ‘가치’가 없는 것이다.

9. 섭리사에서도 <육>은 멀쩡해도 <생각과 사고>가 변질되어 주를 등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육>도 별 가치가 없다.

10. <생각과 사상>이 변하면 <육>도 가치가 없다. <육>이 불구가 돼서가 아니라 <생각>이 불구가 돼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질>이 문제다.

12. <거리>가 가깝든 멀든 <생각의 질>에 따라서 통하거나 안 통한다.

13. <생각의 질>이 다르면, ‘선(線)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극과 극이다.

14. 사람도 <생각>이 다르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극과 극이다.

15.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받은 것들>은 ‘육’으로는 다 모아서 쌓아 둘 수가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것들>에는 ‘영원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고로 ‘영적’으로 쌓아서 ‘영’이 받고 변화되고,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져가서 ‘영’으로 누려야 된다.

16.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데, 못 쓰면 답답하다.

17. 처음에는 ‘작게’라도 행해라. 그러다 보면 점점 ‘크게’ 행하게 된다. 이것이 <행하는 방법>이다.

18. 최선을 다해라. 그래야 뚫린다.

19.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열 내서 기도하면 변화가 있고, 뚫어지고, 벽과 담이 무너진다.

20. <순간> 하여 해결하려 하지 말고, <꾸준히> 해라.

21. <콩 한 되> 갖다 놓고 몇 개인지 세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간다. 처음에는 그만큼 행하고, 다음에는 <콩 한 말>을 갖다 놓고 몇 개인지 세 보는 정도는 해야 ‘하는 일’이 뚫린다. 그 정도도 안 하고 무엇이 되겠느냐.

22. 산을 타려는데 그냥 되겠느냐. 몇 미터를 갈지 정하고,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신앙도 그러하다.

23. 가령 월명동 운동장에서 극기봉까지 간다 하자. 걸어서 4000발자국 정도를 가야 된다. ‘1000발자국, 혹은 2000발자국만 가면 되겠지.’ 생각하면 가다가 못 간다. 이것도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함께 하면, 그래도 쉽다.

24. 엄두가 안 날 때는 - 기도하고 정신을 다잡고 해라.

25. 주를 사랑하는 데서 끝내려느냐. 주와 함께 행하여 ‘완전한 휴거’를 이루고, 어떤 일이든 ‘성공’해라.

26. 책망하면, 주눅이 들고 마음이 굳어서 마비되고 행해지지도 않는다. 결국 응달 속의 나무와 같이 되어 크지 못한다.

27. 기 꺾으면 기가 죽고 기운이 없어서 쓰러진다. 그러다 결국 시체같이 된다.

28. <책망>보다 <격려>다. <사랑으로 가르쳐 주기>다.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최고 귀한 것>은 ‘자기 몸’으로 낳아 창조하고, <그다음 귀한 것>은 ‘만들어서’ 창조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낳아’ 창조하셨고, <그 밑의 만물들>은 ‘만들어서’ 창조하셨다.

3. <자기 형상과 모양과 존재의 질과 성분>이 아니면, 일체 되어 같이 살지 못한다.

4. 사람도 ‘생각의 질과 성분’이 다르면 생각의 파장이 달라서 부딪히게 되고, <생각했던 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 충돌하여 같이 못 산다.

5. 곡식을 심을 때도 ‘땅의 질과 성분’이 변해 버리면, 곡식이 양분을 먹어도 병이 들거나 죽게 된다. 고로 주인은 다른 땅으로 곡식을 옮겨 준다. - 인생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구원자 앞에 <생각>이 변하면, 결국 서로 안 맞고 자꾸 충돌하여 같이 못 산다.

6. 땅이고, 물이고, 환경이고, 기후고 변해서 선을 넘으면 - 거기서 못 산다. 존재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7. 과일도 음식도 변하면, 썩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인생도 변하면, 완전히 다른 존재의 마음과 행실이 되어 버린다.

8. 변하되 ‘종계’ 변화되고 ‘빛나게, 아름답게’ 변화되어라. 그래야 <육>도 세상에서 ‘하나님 주권권 안’에서 살고, <영>도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삼위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9. 인생도 만들되 ‘종계’ 변화되면, 상상도 못 하게 ‘좋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어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다. ‘나쁘게’ 변질되면, 너무도 가련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된다.

10. 월명동을 보아라. 개발 전에는 잡초와 썩은 물과 황폐한 골짜기였다. 쳐다보기도 싫은 저주의 땅, 슬픔의 땅이었다. 정말 못생긴 골짜기였고, 삭막하고 외롭고 쓸쓸한 골짜기였다. 희망이 없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고생의 골짜기였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 그곳을 ‘ 좋게 ’ 변화시켰다. ‘ 좋게 ’ 변화되니 희망의 골짜기가 되었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골짜기로 뒤바뀌었다. 구원과 휴거의 골짜기, 사랑과 이상의 골짜기, 빛이 나고 광명한 골짜기, 생명의 골짜기, 깨끗한 골짜기, 천국의 골짜기, 아름답고 고귀한 자들이 세계에서 밀려오는 기쁨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같이 ‘ 좋게 ’ 변하면 <극의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 나쁘게 ’ 변하면 <극의 절망과 초라함>으로 끝난다.

11. <나쁘게 변한 자>는 썩은 과일이나 죽은 나무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 좋게 변한 자들>은 거목같이 큰 자들이 되었고, 월명동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귀한 자들이 되었다.

12.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섭리사에 있을 때에는 군중들이 그리도 그들을 선호하고 크게 봤다. 그러나 섭리사를 나가니 ‘ 썩은 과일, 죽은 나무 ’ 같이 되어서 너무도 초라하다.

13. 하나님 앞에 ‘ 신앙이 산 자 ’와 ‘ 죽은 자 ’는 그리도 극으로 차이가 있다.

14. <죽은 과일나무>는 주인이 베고 다 토막을 내어 ‘떨감’으로 쌓아 놓는다. 너무도 가련하고 초라하다. 그 후 불에 넣어서 사라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끝난다. 반면, <살아 있는 과일나무>는 주인의 정원에서 동서남북으로 가지가 멋있게 뻗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 그 나무로 인해 정원이 환하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귀하다. 주인이 그 나무를 보고 늘 기뻐하며, 거기서 얻은 열매로 수차례 마음 잔치, 실제 잔치를 한다. 나무가 열매 맺는 철이 지나도 또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풍성한 모습을 자랑한다. 정원에서 빛이 난다. 사람도 성삼위 앞에, 주 앞에 그러하다. <신앙이 죽은 자>나 <병든 자>는 참으로 가련하고 초라하다. 반면, <싱싱한 생명력을 가지고 변화되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자>는 그리도 크고 귀하고 아름답다. 정원의 과일나무같이 빛이 나고, 사랑과 화목과 진리와 성령 충만의 빛이 난다.

15. <신앙이 죽은 자>는 ‘ 죽은 파리 ’ 같고, <신앙이 산 자>는 ‘ 살아 있는 호랑이와 치타 ’ 같다.

16. <신앙이 산 자>는 ‘ 온 세상의 주인 ’이 되고, <신앙이 죽은 자>는 ‘ 죽음의 주인 ’이 되어 아무것도 없는 무(無)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최고 사랑의 대상>은 낳으셨다. <그들이 살 터전>은 만들어서 창조하셨다. <삼위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삼위는 그가 행할 때 기뻐하시고, 그가 영광 돌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고로 먼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일해라.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시에 봤을 때>나 <꿈에서 봤을 때>, 그 순간 생생하게 기억난다.

2. <초저녁 꿈>은 많이 꾀도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고, <새벽에 잠에서 깨기 직전의 꿈>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3. 하루 생활을 다 하고 나면 <새벽이나 오전에 한 일들>은 시간이 오래되어 기억이 잘 안 나고 흐릿하다. <오후 늦게 한 일>은 기억이 잘 난다. 그나마 시간이 가면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4. 사람은 그 순간 <봤을 때>나 <생각났을 때>, 그때 생생하게 기억난다. 고로 할 일은 ‘ 봤을 때, 생각났을 때 ’ 그 즉시 해야 된다.

5.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 할 일은 봤을 때, 생각났을 때 즉시 해라.

6. 삼위일체는 인간이 할 일이 있을 때, 행하도록 그 순간 기억나게 해 주신다. 고로 생각났을 때 즉시 해야 된다.

7. 삼위일체도, 주도 어떤 사람에게 뜻이 있어 할 일을 하실 때에는 - 순간 '영'이 임하여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거나, 혹은 '생각을 일체'시켜 역사하신다.

8. <생각>을 집중해라. 그때는 '하나님과 성령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생각'이 임한다. 그때 사연을 구하며 간구해라.

9.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자기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라. 그리고 그 말이 생각나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해 보아라. 그러면 합당하니, 깨닫게 해 주신다. 그 대신 깨달았으면, 꼭 행해야 된다.

10.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쌓여 있다. 그러니 본인만 하나님께 말하며 간구하면 된다. 하루고 이틀이고 시간을 내서 간구하고 수시로 간구해라.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고 대답하신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나타난다. 만물을 보여 깨닫게 해 주시고, 직접 말씀하여 그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게 해 주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말'을 가지고 계신다. 고로 간구해라.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형통한다. 그 <형통>은 '영'까지 영향을 받고 '영원'까지 연결된다.

12. 이 시간 잠언을 쓰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하나님은 "요즘 너와 나의 대화가 적었다." 하셨다.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노래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다.'를 며칠째 신경 쓰면서, 접견 때 불러 주어 섭리사 전체가 부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 대화를 못 한 것이었다. 이 사연을 말하니, 하나님은 "그러면 더 대화해야지."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13. (하나님 말씀) 선악을 쪼개 주고, 나 여호와의 생각을 섬세히 전해 주고, 합당한 나의 말을 전해 주어라.

14. (하나님 말씀) 먼저 <선악>을 쪼개 놓고 <불의>를 심판해라.

15. (하나님 말씀) 개인에게도 <선악>을 쪼개 주고 "이것은 불의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주의 생각도 아니다. 고로 소각하고 회개해라. 너는 이같이 해라." 하고 가르쳐 주어라.

16. (하나님 말씀) 먼저 <선악>을 쪼개 주고, 왜 '불의'인지 이야기해 주고, '목적'을 행하여라.

17. (하나님 말씀) 먼저 회개하여 '불의'를 소각하여라.

18. 하나님께 또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냐고 하니, "성령께 물어라." 하셨다. 성령께 물으니,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다.' 노래 가사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로 부드럽게 고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성령으로 낳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 살아 있어야 '생명'이다. 살아 있어야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20. 하나님 말씀 번역이 어렵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써서 전달하면, 듣는 자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고로 <듣는 자들 입장>에서 알아듣도록 언어를 고쳐서 전달한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약해진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권위는 있고 간단한데, 듣는 자들이 들어도 잘 못 알아듣는다. <설명식 잠언>이 잘 전달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번역하여 잠언을 쓰는 것이 어렵다.

21.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다> - 이 노래를 지을 때, 처음에는 '조은이를 앞에 얹혀 놓고 하신 말씀'같이 들렸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조은아~" 이 세 자로 노래를 지어 보라고 하셨다. 그렇게 지은 노래가 '수련회 화동 곡'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과 성령님의 원본>은 "좋으나 나쁘나 너희는 하나다."였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섭리인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선생이 먼저 하나님과 성령께 듣고, 전체에게 내보낼 때는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다."로 바

꿔서 내보냈다. 이런 것은 ‘전체의 입장’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삼위와 주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입장>으로 할 때는 “좋으나 나쁘나 너희는 하나다.”라고 한다.

22. <좋으나 나쁘나 우리는 하나다> -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삶 가운데 서로 <생각>이 다르니 ‘좋으나, 나쁘나’가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때마다 차원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같다. 이 그림과 같다. (선생님 초안 보여 주기)

23. 한 배를 타도 <생각>은 ‘각각’이나 <목적지>는 ‘한 곳’이다.

<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 인간의 행함도 이같이 반응을 보인다. 고로 행하기만 하면 ‘선악 간의 대가’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가’를 받는다.

2. 좋게 행하면 좋게 받기도 하지만, 타인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 사람들은 해를 안 받으려고 담을 쌓고 살게 된다.

3. 저마다 편하고자 행하고, 얻고자 행하면서 자기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다.

4. 개인·가정·민족·세계 모두 ‘운영’을 잘해야 된다.

5. 자기 생각 운영, 자기 인생 운영, 자기 신앙 운영, 가정 운영, 교회 운영, 섭리사 운영, 민족 운영, 세계 운영이다.

6.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림이 되듯이, 행하는 대로 행실이 된다.

7. 저마다 ‘빛’을 발하여라. <빛>이 없으면 안 보인다.

8. <빛>이 ‘생명’이다.

9.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삼키지 못한다.

10.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을 다스리고 주관한다.

11. <빛>이 있으면 ‘산 자’다. <죽은 자>는 ‘빛’이 없다.

12. 만들 때, 아예 ‘목적’을 두고 만들어라. 자기도 그러하다.

13. 하나님께 몸도, 마음도, 사명도 다 맡겨라. 그래야 마음이 놓인다. 하나님은 안 뺏으신다. 맡긴 자와 더욱 함께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14.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뺏긴다. 자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도 빼앗아 죽인다.

15. 전능자에게 다 맡기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자기 몸>도 <생각>도 <사명>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악’으로도 행하지 않는다.

16. <예전>에 잘했다고 <지금>도 그것만 보면서 쓰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 배우면서 잘해야 된다.

17. <변화가 연속>돼야 ‘변화된 세계’에 쓴다.

18. 시대는 '계속 변화'된다. 시대에 따라 행하여 '자신'도 변화시켜야 된다.
19. <손>으로 안 잡으면 놓치듯, <말씀>으로 안 잡으면 놓친다. <사랑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로 잡아라.
20. 행하면서 연구도 하고, 행하면서 승리도 하고, 행하면서 그 위치에 존재도 하고, 행하면서 차원도 높이는 것이다.
21.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진다. <행하는 자>가 이긴다.
22. <관리자 차원의 관리>는 아주 차원 낮은 관리다. <상대를 보고 그 차원의 관리>를 해야 된다.
23. 상대는 생각이 다른 데 있다. 그 차원보다 앞서서 관리해야 된다.
24. 상대는 '이성'에게 쏠려 있는데 '말씀'으로 잡아지겠느냐. 그 부분을 건드려 주며 풀어 주고, 그다음에 '말씀'을 넣어야 된다.
25. 이미 '말씀'을 떠나서 '말씀의 망'을 벗어났는데, '말씀 그물'만 만지며 뒷북치느냐. 지혜도 지식도 없으니 생명을 뺏긴다.
26. 이길 때는 '갇은 무기'로 이긴다. 그런데 '무기'가 있어도 못 쓰고 있구나.
27. <말씀>을 '한쪽 방향'으로만 쓰니, 지는 것이다. <말씀>은 '좌우의 날 선 검'이다.
28. 생명을 관리할 때는 '주의 생각'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생각'에 따라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에게 뺏긴다.
29. 관리를 못 해 생명을 뺏기면, 그만큼 교역자와 지도자에게 손해가 간다. '자기 발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30. 못을 박을 때는 '못 박을 데'에 정확히 박아야 '못'이 탄 데로 안 간다. 사람도 그러하다. <생각>을 '목적'에 정확히 박아 줘야 탄 데로 안 간다.
31. 너 한 명을 보고 운행하니, 꼭 '117 기도'를 해라. <네>가 못 하면, '성령 혼자' 하고 가신다.
32. 결국 승리하니, 과정 중에 고생돼도 모든 길이 '승리하는 노정'이다.

<2016년 8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가르치고 만들면 '개성의 영웅'이 된다.
2. 단, '무엇'을 '얼마나' 가르쳤느냐가 문제다.
3. <최고로 귀하고 영원한 것>을 가르쳐서 '영웅'으로 만들어야 된다.
4.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휴거>가 최고로 귀하고 영원히 가치 있다.
5. <최고로 귀하고 영원한 것> 딱 하나만 말한다면, 곧 '휴거'다.
6. <휴거>는 '영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최고로 원하고 바라시는 역사'다. 고로 삼위일체는 <휴거>를 목적하고 6000년 동안 역사해 오셨다. 농부가 '과일나무'를 키울 때 '열매'를 목적하고 키우듯, 삼위일체는 '인생들'에게 '휴거'를 목적하고 때가 되면 '보낸 자'를 통해서 <휴거 역사>를 행하신다.

7. 삼위일체는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어, 그 말씀을 모두 행하게 하신다. 인생들 저마다 그 말씀을 행하면, 마치 자기 집을 건축하듯 ‘자기 행위’대로 <휴거>를 이루고 <천국 황금성의 집>을 짓게 된다.
8. 결혼해도 각자 ‘차원’대로 노력껏, 실력껏 <결혼 생활>을 해 나가듯, 휴거돼도 각자 ‘차원’대로 노력껏, 실력껏 <휴거 생활>을 해 나간다.
9. 휴거됐어도 저마다 ‘생각의 차원’과 ‘행위의 차원’이 다르니, 각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상, 중, 하’로 살아간다.
10.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자가 있듯, 휴거됐어도 휴거를 상실하는 자도 있다. 고로 휴거를 상실하지 않도록 ‘최고 차원’까지 올라야 된다.
11. 자기가 원해서 <신도시>로 이사를 갔어도 ‘자기 실력, 재능, 취향, 수준’대로 살아간다.
12. 이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만났어도, <시대 주>를 만났어도, <시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저마다 ‘생각과 행위의 차원’에 따라서 ‘상, 중, 하’로 살아간다.
13. 결혼했어도 ‘배우자’와 일체 되어 그를 낙으로 삼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친구나 동료와만 어울리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
14. 휴거됐어도 ‘주’와 일체 되어 살지 않고 ‘삼위’와 일체 되어 살지 않고, 자기 취향과 자기 생각대로 살기도 한다. 그러면 <그 행위>대로 ‘그 차원’으로 살게 되고, 천국 황금성에서 받을 것도, 자기 영이 거할 집도, 땅에서 받는 것도 ‘그 차원의 것’만 받고 살게 된다.
15.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차원’까지만 보고 느끼고 산다.
16. 영의 세계를 본다고 하나, 거의 제대로 못 본다. 영의 세계를 아는 자들 소수만 보고, 거의 부분적으로 본다.
17. 영의 세계를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욕이 생각한 것만큼 이상적인 곳’에 있는 영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욕이 기대한 것보다 더 못한 곳’에 처한 영들이 많다.
18. 세상에서 <욕>이 절대 <주>와 일체 되고 <삼위>와 일체 되어 ‘전적’으로 살지 않고서는 - 모두 영의 세계에서 보면 <그 영의 모습>도, <영이 거하는 곳>도 ‘보통’, 혹은 ‘보통 이하’다.
19.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전적’으로 한 것만 ‘자기 기대’만큼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이고 ‘보통 이하’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서 자기 혼과 영도 그러하다.
20. 하지도 않고서 ‘잘되겠지.’ 기대하지 말아라. 했어도 보통으로 하고서 ‘잘되겠지.’ 기대하지 말아라. 절대 ‘전적으로 한 것’만 절대적으로 잘되어 있다.

<2016년 8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선생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시켜 놓고 확인해 보니 40% 마음에 들게 하고 있었다. 다시 100% 자세히 이야기 해 주고 ‘이제는 100% 됐겠지.’ 하고 확인하니, 70% 마음에 들게 하고 있었다. 충격 받고 속상했지만,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했다. 그들이 내 말귀를 좀 알아듣고, 내가 하듯 ‘하나님의 구상’대로 잘하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내 주었다. 그리고 “절대 이같이 해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생각보다 실체는 안 됐어도 포기 말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았으면, 다시 설명해 주면서 하게 해야 된다.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가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일도 여러 번 하여 결국 기적이

일어나서 잘되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100% 하는 것’은 쉽지 않다.

22. <월명동 자연성전>도 세계에서 최고가 되게 만들기까지는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보는 자들은 그냥 됐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구상을 따라 ‘해 본 자’만 영웅이 되어 안다. 나머지는 20%, 30%, 40% 정도 알고, 많이 알아야 60% 안다. 알고 깨닫고 느낀 만큼 가치 있게 쓴다.

23. <가치 있는 것>도 ‘쓰기에 따라’ 더 빛난다. 사람도 그러하다.

24. <자기>가 귀하고 귀해도 ‘쓰여져야’ 귀하다.

25. 그러나 <육>만 위해 쓰여지면 ‘일순간’이다. <영>을 위해 쓰여져야 그 가치가 ‘영원’하다. <육>은 영화를 누려도 ‘일순간 영화’다.

26. 인간은 <육>만 위해 쓰여지고 <자기중심>으로만 쓰여지면, 역시 ‘많은 인생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절대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여질 때 ‘세상 누구도 못 따라오는 최고 가치 있는 자’로 쓰여진다. 또한 ‘몇 번 쓰고 마는 소모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남아 계속 누리게 된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쓰여지는 것>이 최고다.

27. <육신의 삶>만을 위해 살면, ‘소모품’같이 쓰고 끝난다.

28. 육이 <영>을 위해 살면 <육신>은 ‘소모품’같이 끝나지만 <영>은 ‘육신이 행한 것들’을 받아 변화되어 ‘영원히 권세’를 잡고 누리게 된다.

29. <몸>으로만 하면 ‘평생 불가능한 일’도, <생각>이 <혼과 영>과 함께 하면 ‘금방’ 해서 얻는다.

30. 모르면 <몸>으로만 하다가 실패하고 억울하게 끝난다.

31. <아는 자>가 ‘신’이다.

32. <천국>은 ‘아는 자’가 가고, <지옥>은 ‘모르는 자’가 간다.

33. <육>으로만 느끼다가 ‘육’만 망가진다. <생각>으로 <영>으로 느껴야 만 배, 백만 배 느낀다.

34. <마음, 정신, 생각>은 ‘육의 세계에서 신적 존재’다.

35. <신>은 ‘불가능’이 없고, ‘육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 준다.

36. <육>은 ‘땅’을 면치 못하고, <생각과 혼과 영>은 ‘육이 일생 동안 가도 못 가는 곳’을 1초 만에 간다. <생각과 혼과 영>을 쓰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실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라.

37. 육의 세계의 신적 존재인 <생각>과, 영원한 권세를 가질 <혼과 영>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다.

38.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도 모르니 못 써먹고, 기술과 노력이 없어서 못 써먹고, 생각이 안 나서 못 써먹고 고스란히 늙어 간다.

39. <자기 몸의 생각>이 ‘보화’다. <생각>을 ‘전능자와 주와 일체’ 시켜 찾아보아라. ‘보화’를 찾게 되리라.

40. <생각>을 ‘신’으로 만들어라.

41. <생각>을 ‘신’으로 만들려면, 절대 ‘전능자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그 생각’과 일체 시켜라.

<2016년 8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눈동자가 늘 살피듯,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눈을 떼지 않고 인생들을 관리하신다.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관리하신다.
2. <관리>는 ‘두 겹 줄’이 되어 하여라.
3. <내적 관리>와 <외적 관리>다. 행여 ‘한 사람’이 안 맞으면, ‘그 옆의 다른 사람’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라.
4. <영적 관리>와 <육적 관리>다. 그래야 ‘육적 환난’이 오면 이기고, ‘영적 환난’이 와도 이긴다.
5. 여자들 피부 관리하듯 ‘매일 관리’다.
6. <관리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원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며, ‘관리에 눈을 못 뗀 때문’이다.
7. <관리>를 잊으면 ‘그 생명’이 죽는다.
8. 목숨 걸고 전도했는데, 관리를 못 해서 ‘그 생명’을 뺏겼다. 후에 다시 전도하려고 찾아다녀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괴롭다. 결국 주가 기도하고 다시 전도하여 ‘그보다 10배 나은 자’를 전도하여 키웠다. 그제야 전도자의 얼굴이 피고 희망이었다. 그 어린 생명이 또 전도하여, 결국 ‘신앙의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 그렇게 ‘신앙의 민족, 신앙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9. 어떤 사람은 전도자가 자기를 너무 쥐고 자유를 뺏으니, 모사를 쓰고 다른 교회에 다닌다고 하며 아예 안 나오는 자도 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그렇지 않은지 꼭 생각해라. 자기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말씀해도 소용없다.
10. 전도자나 지도자가 생명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 <주>와 연결시켜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해야 된다.
11. 어린 생명들은 잘 모른다. 고로 세세히 가르쳐 줘야 된다. <주>에 대해 가르쳐 주고, 뱀과 이리와 같은 <악평자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주>는 등지고 <악평자들의 말>은 따라간다.
12. 각자 ‘달란트’가 다르다. <전도>를 잘하는 자가 있고, <관리>를 잘하는 자가 있다. 서로 생명 두고 싸우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야 된다.
13. 강의 전문가, 관리 전문가, 전도 전문가, 설교 전문가 등 각자 ‘잘하는 파트’가 있다. 해당되는 파트에 생명을 맡기고, 주를 머리로 삼고 모두 하나 되어 해라.
14. <전도자가 관리할 차원> 외에는 더 못 한다. <주>께 연결시켜 <주>와 일체 시켜라.
15. 초상화를 그리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본인이 하겠느냐. 인생도 그러하다. ‘인생을 만드는 주’께 맡겨라. 생명들이 ‘주’께 오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어라.
16. <주>께 맡겨야 ‘고차원’으로 가르쳐서 ‘담대한 자, 굳건한 자, 뛰어난 자’가 되게 한다.
17. 건축가도 아닌데 자기가 나무를 베다가 집을 지으면 ‘일반 집’이 되고, 그나마 ‘무너지는 집’도 있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월명동’을 건축하듯 인생을 만들려면, <육과 영을 구원하고 하늘 신부로 만드는 전문가, 주>가 손을 대야 된다. 자기 실력으로만 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기껏해야 ‘집 정원’ 만들듯 만들게 된다.

18. <자기>가 하면 ‘손으로 돌을 들어 담을 쌓는 격’이다. 크고 웅장한 조경을 만들려면 ‘포클레인’으로 돌을 쌓아야 된다. 이와 같이 ‘주’가 해야 된다.

19. 주가 손대어 만들어도 처음에는 표가 안 난다. 서서히 완성해 놓으면, 주가 쓸 때 모든 자들이 보게 된다. 인생 작품도 그러하다.

20. 주가 똑같은 말씀을 줘도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노력의 차이다. 실력의 차이다. <설교자의 설교 위력이 있는 교회>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불 충만 하니 결국 휴거 차원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설교자가 노력을 안 해서 말씀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휴거 차원이 낮을 수밖에 없다.

21. <설교>는 ‘23단계’를 거쳐서 피땀 흘려서 내보낸다. 그런데 <설교자>가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쳐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령은 위력 있는 말씀을 주셨고, 주는 때로는 금식도 하며 날마다 심혈을 기울여 몸부림쳐 받았는데, 전하는 자는 보통으로 전한다. 당장 뛰쳐나가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22. 섭리사에는 ‘여자 교역자들’이 전체 교역자의 3분의 2다. <여자 교역자의 시대>가 서서히 지나간다. 깨달아라!

<2016년 8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에서 잊어버렸다’ 함은 ‘끊어졌다’ 함이다. ‘끊어졌다’ 함은 ‘죽었다’ 함이다.

2.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으면 ‘실패’다.

3. <꿈에 받은 계시>를 잊으면 ‘실패’다. 하늘이 주시는 것을 못 얻는다.

4. <생시에 받은 계시>도 잊으면 ‘실패’다.

5. 성령과 주가 ‘뜻’이 있어서 ‘목적’을 두고 해 주기 위해 <꿈>이나 <생시>에 암시하여 계시해 줬는데, 그것을 잊으면 못 준다. 잊지 않도록 집중하여, 계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주와 대화하고, 계획하며 행해야 된다.

6. <사람>을 통해 계시하기도 하신다. 삼위도 주도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7. <삼위가 말씀하고 계시하신 것>을 잊는 것은 ‘자기 소중한 물건’이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잊은 것과 똑같다. 이는 마치 ‘돈 가방’을 잊고 그냥 오는 격이고, ‘귀한 물건과 금품’을 잊고 그냥 오는 격이다.

8. 기록해 놓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행하기다.

9. 잊으면, 그것이 죽은 격이다.

10. ‘잊었다’ 함은 ‘모른다’ 함이다. 모르면, 살 것도 죽는다.

11. 배워라. 노력해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말아라. 극적으로 행해라.

12. 온 인류는 ‘물라서’ 실패하고 멸망한다.

13.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알려 주고, ‘합당한 자’를 보내서 알려 준다.

14. 알려 줘도 배척하는 자, 알았어도 행하지 않는 자, 행하다 마는 자 역시 모두 실패하고, 멸망까지 하게 된다.

15. 잊지 않기다. 행하기다. <잊지 않을 것>을 기억하고 행하여 성공하면, 그 길로 평생 누리고 영원까지 누린다.

16.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하기다.

17. '자기 혼자' 행하면 '자기 주관'대로 가게 된다.

18. <계시>는 '축복'이다. <삼위의 계시>를 받고 잊지 않고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

19. <계시>를 주실 때는 '낮에 생시'에나 '밤에 꿈'에 보여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만물'로도 보여 주신다.

20. 은밀히 스치듯 계시하실 때도 있으니, 확실히 알려면 '기도하며 반복해서 물어보고 확인'하여라.

21. <계시>를 받았으면, 행하면서 계속 물어보기다.

<2016년 8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22. <성령님의 사랑>은 '육계와 영계를 합친 것'만 하다. <그 사랑의 핵>은 '태양이 끓듯' 하고, <그 사랑의 생명력>은 '보이는 지구 덩이'만 하다. <성령님의 사랑>이 안 가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23. <성령님의 사랑>도, <가르침>도, <계시>도 '태양'같이, '지구'같이, '영계'같이 크고 많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 할 일을 못 하고, 또 성령이 감동을 주고 도와줘도 모르고, 성령이 도우셔도 소홀히 하니 <성령의 사랑>도, <가르침>도, <계시>도 '실 가닥' 만큼만 받고 행하고 얻고 끝난다.

24. 크게 해라. 실 가닥 같은 행위, 골목길 같은 행위, 옛 행위를 벗어나라. 크고 시원하게 '고속도로' 만들듯 하여라. 그래야 수많은 차량이 교통하듯 성령과 교통하며 그 사랑도, 가르침도, 계시도 많이 받고 행하여 얻게 된다.

25.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이왕 하늘 길을 가는 것 '절대적'으로 행하면 좋지 않냐. 이왕 행하는 것 '크게' 행하면 좋지 않냐.

26. 성령도 주도 '크게' 행하기를 원한다.

27. 가치를 모르는 자는 '황금 길'을 가다가 '움막'에서 인생을 소모하고 만다.

28. 주를 따라오다가 뒤에 처져서 무리에서 벗어난 자는 <육의 삶>도, <영>도 포식자들에게 사냥을 당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삶'이 된다.

29. 지구 세상 73억 명 중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택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도록 돕고 함께해도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택해서 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다음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영원히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한다.

30. 한 번 기회를 잃고 끝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이미 지난 역사'로 보고 아예 생각도 안 하신다. 고로 '죽은 격'이다.

31. 지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휴거의 삶>을 사는 자들아. 그 가치를 알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해라.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다시 오지 않는 날들이다.

32. 휴거되면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휴거'를 위해서 해라. <생활 속의 휴거>다. 곧 '생활 속에서 할 일을 하면서 휴거를 이루는 것'이다.

33. 섭리사에 아직도 엉뚱하게 행하는 자들이 많다. 말씀의 물로 씻어 보아라. 주께 물어보아라. 기도해라. 자기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다.

34. <전진할 때, 차원을 높일 때>는 마치 밀림을 치고 나가듯 해야지, 주저앉아 지체하다가는 인생의 해가 넘어가서 거기 머물게 된다. 헤치고 나가듯 하면, 거기를 벗어나서 딴 세계가 나온다.

35. <작은 일>을 하더라도 깨작대며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치고 나가면서 전진해야 된다.

36. 다 한 후에 정리하기다.

37. 이런 것들이 '인생 사는 기술'이다.

38. <몸도 생각도 풀려서 열나고, 땀나고, 흥분되고, 생각이 집중되고, 의식 앓고 미쳐서 행할 때>, 확 헤치고 나가면서 해 버려야 된다. 지체하면 판이 식는다. 할 때 해야 된다.

39. 네가 <육계에서 행한 일>을 '꿈'에서 보아라. 너무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40. <눈동자> 가듯 <생각>이 간다.

41. (하나님) <생각>에 들여보내라. - 깊은 잠언 (반복해서 읽어 준다.)

42. <사랑의 생각>에 들어가야 최고 기쁜 것이다.

43. <네 생각>에 '삼위와 주'를 들여보내고 사랑해라. 그러면 최고 기쁘다.

<2016년 8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44. <연결>을 잘해야 된다.

45. <가지가지 연결하여 깨닫기>를 '번개'같이 해야 된다.

46. 하나님과 성령님은 '수백만 가지 사물이나 만물', 그리고 '사람들'을 그때마다 보여 주면서 '그것과 연결'하여 '계시 하고자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에 유능해야 된다.

47. <만물의 글>도 읽으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기다.

48. <만물의 글>을 잘 읽는 자는 '책의 글'을 읽듯이 '삼위가 어떤 계시를 주셨는지 연결'하면서 읽는다.

49. <비유>도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않으면, '신앙과 계시와 생명의 말씀'이 아닌 '학문'으로 끝난다.

50. 가령 '나무의 뿌리가 약하면 바람에 쓰러진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학문>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연결하여 '<말씀>이 뿌리인데, 사람도 <말씀> 기반이 약하면 환난의 바람이 불 때 쓰러진다.' 하고 연결시켜 말하면 <신앙>이다. <영적 계시>다. <생명의 말씀>이다.

51. <자기가 행한 것>만 말하고 <삼위와 주>를 연결해서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식'이다. '육적인 것'이다. '자기 이야기'다.

52. 아무리 <위대한 말>도 <삼위와 주>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세상 학문'이다. '육에 속한 것'이다.

53. <게시>는 ‘연결’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보이는 욕의 것’을 비유로 들어 ‘영의 것’을 연결해 게시해 주신다.
54. <비유>는 ‘쉽게 게시하여 깨닫게 하는 삼위의 말씀’이다.
55. <비유>는 곧 ‘삼위일체’다.
56. <최고 좋은 비유>는 ‘샘에 바가지를 넣고 물을 뜨는 것’과 같다.
57. <핵 하나>를 알면, ‘모두 다’ 안다.
58. 결과와 존재 등 수역만 가지를 다 배우려면, 배우다가 ‘인생의 해’가 넘어간다.
59. 자기 인생길을 가는 데 ‘꼭 필요한 것, 급한 것’만 배우고 가라.
60. 남들이 하는 것, TV, 세상 예술, 세상 구경을 다 하다가는 ‘자기 인생길’ 못 가고 ‘인생의 해’가 진다. 그때는 거리에서, 텅 빈 별판에서 ‘골’이 비어 사경을 헤맨다.
61. 인생 누구나 ‘갈 길’은 멀고, ‘인생의 해’는 짧다.
62. 비유를 들 때 <가장 합당한 비유>는 마치 ‘천생연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순간’과 같다.
63. <침단의 비유>는 ‘불과 불’ 같고, ‘물과 물’ 같고, ‘살과 뼈’ 같아서 듣는 자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64. “하나님은 <멋>을 무엇으로 표현하십니까?” 물으니, “<만물>과 <인간>으로 표현하였다.” 하셨다.
65. <인생길>을 가는 데 ‘배울 것들’이 많고도 많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배워라. ‘평생 배울 것들’이다. 배웠으면, 깨닫고 행하여라. 그러면 ‘신의 삶’을 살게 된다.
66. <아름다운 것들>은 ‘보화’다. <그것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다.
67. <좋은 꿈>도 ‘보화’다.
68. <좋은 꿈>을 꺾어도 ‘행하지 않으면’ <꿈>에서 끝난다. 행해야 <현실>로 이어져서 얻는다.
69. <귀한 것>은 ‘보화’다.
70.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러면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보고 주신다. 고로 구하기도 하고, 귀한 것을 받도록 갖추기도 하여라.
71. <귀한 것>이라도 ‘얼마나 귀히 쓰느냐’가 문제다. 고로 하나님은 ‘귀한 것을 귀히 쓸 자’에게 주신다. 또 ‘귀한 것을 받고 귀히 쓰는 자’에게 더 주신다.

<2016년 8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입>만 벌리면서 <말>로만 공격해도 ‘사탄’이 물러가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냐.
2. <입의 말>이 검이다. 총이다. 수류탄이다. 불덩어리 포탄이다. (초안)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실체>가 되어 ‘사탄’에게 날아간다.

3. <주의 이름>을 대면서 <말>로 ‘축복해 줄 자’를 축복해 주고, ‘아픈 자’가 멀리 있어도 나오라고 선언해 주고, ‘사 고’가 안 나도록 선포해 주면서 전능자에게 고하여라.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일할 것>을 놓고 손발과 몸이 가만히 있는 것과 같다. 고로 되는 일이 없다. <말로 할 것>은 ‘말의 일’이다. 고로 <말>이 ‘실체’가 된다. 고로 <말로 할 것>은 ‘말’로 축복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고해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4. 기도할 때 <말>로 하지, ‘손’으로 하고 ‘몸’으로 하느냐. <말>로 해도 ‘축복’을 주고, ‘공격자’가 꼬꾸라지고 쓰러지 고 패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물러가지 않느냐. <말>로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세상을 뒤집어 놓기도 하신다.

5. <자기 말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실체’가 되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작은 것’부터 놓고 한번 해 보아라. <기도>하면 처음에는 ‘작은 것’이 된다. 그러다 점점 ‘큰 것’을 구한다. 하나님은 ‘합당’하면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어느 때는 ‘국가가 못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일의 사명자>가 기도하면, 즉시 행하신다.

6. 지금까지 기도했기에 섭리인들이 받아 왔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받았고, 육도 영도 살았 다. 그런데도 모른다.

7. <월명동의 큰일들>도 기도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니, 오늘날같이 개발하고 건축하게 하셨다. 만들기 20년 전부터 기도했다. 만들기 10년 전부터 거의 ‘구상’이 나왔다.

8.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다. 각 사람에게 수천 번씩 행하셨다. ‘아픈 자들’도 낮게 해 주셨다. 지금도 <치유 기도의 말씀>이 나가면, ‘아픈 자들이 낮게 해 달라는 말씀’ 듣고 나왔다고 편지가 온다. <하나님이 주 신 말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써먹어야 된다.

9. 한국 서해안 밀물을 멈춘 것, 말레이시아 포덕슨 밀물을 멈추게 한 것을 믿고, 모두 간구하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에게도 ‘표적’이 일어난다. - <표적>이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함이다.

10.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일>이 섭리사에 수천 번이다.

11. 매일 간구, 절대 믿음, 감사, 삼위일체와 대화다. 매일 ‘표적의 역사’다.

12. 선생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사탄아! 명하노니 ‘성령의 검’과 ‘말씀의 검’으로 너를 친다. 물러가라! 섭리사 한 사 람, 한 사람에게 붙어 있는 마귀야! 내가 너를 치니 물러가라!” 하고 명한다. 그리고 수호천사에게 사탄과 마귀가 어 떻게 됐냐고 물으면, “주가 날린 ‘검’을 맞고 쓰러져서 뼈가 부러져 다리를 절면서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한 다. <천사>는 잘 가르쳐 준다. <자기 혼>에게 물어도 잘 가르쳐 준다. 먼저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고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는 청소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사탄과 마귀>가 옆에 있고, <죄로 인해 썩는 악취>가 나면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자기가 가까이 가려 해도 못 만난다. <죄>를 그냥 두고 기도하느냐. <죄 보따리>는 ‘회개’함으로 마치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쓰레기 보따리 안고 하나님께 가 면 되겠느냐. 가르쳐 줬으니 해라!

<2016년 8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일>을 해도 ‘방법’에 따라서 - 빨리하기도 하고, 늦게 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2. <방법>이 ‘지혜’다.

3.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 길로만 가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의 길’로 가서 이루어도 ‘목적지’는 같다.

4. <수를 놓는 것>도 수공으로 하면, 큰 것은 ‘몇 달’ 걸린다. 그러나 기계로 하면 ‘순간’ 한다. 이와 같이 <자기 방 법>으로는 ‘몇 달’ 걸려도 <하늘 방법>으로는 ‘순간’ 하게 된다. 그 방법은 ‘자기중심’이 아니고 ‘성령과 주 중심’이다.

5. <지혜>는 ‘판단’을 제대로 하고 행하게 한다.
6. <판단>을 잘못하고 행하면, 실패다.
7. <수공>으로 긴 시간 들여 수놓을 필요가 있나. <기계>로 순간 할 일이다.
8. <몸>으로 몇 달 걸려서 해야 될 일이면, <기계>로 하는 것이 지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시는 것>은 ‘기계’로 하는 것과 같다. <인간 스스로> 하려면 ‘손수 몸’으로 힘들게 몇 달씩 걸려서 해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냐.
10. 시간이 없으니 ‘자기 몸으로 땀 흘리며 할 때’가 아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하심으로 해야 될 때’다. 시간이 없는데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해서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늦어서 해도 실패다.
11. <새벽에 제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몇 달 걸려도 잘 안 된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면 그 날은 된다.
12. “내 몸아. 아무리 일해도 달려. 성령께 해 달라고 해. 주께 해 달라고 해. <몸>만 쓰지 말고, <머리>를 써.” 하고 간구해라.
13.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과 <성령과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른다.
14. 자기가 수공으로 하듯 하면서 ‘성령’으로 하는 줄 안다.
15. <자기>가 하면, ‘수공’으로 하듯 늦다.
16. 자기가 100번이든 1000번이든 ‘성령과 주’를 부르면서 해도 ‘자기중심’ 되어 하면, 역시 ‘수공’으로 하는 자다.
17. <수공>으로 수를 놓으면 그리 몸부림치며 빨리해도 얼마 못 한다. <기계>로 해야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빨리하고, 많이 하고, 지치지도 않는다.
18. 교역자나 어떤 사명을 맡은 자들이 ‘수놓을 때 수공으로 하듯’ 하니 힘들고, 한계를 맞고, 몸도 약해지고, 지치고, 일의 양은 많은데 조금밖에 못 하는 것이다.
19.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고로 ‘주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많이 하고 잘된다.
20. 자기중심 되어 하는 자들은 여러 번 그리하지 말라고 하며 주의를 주고 또 그 일을 맡겨도 반복적으로 똑같이 한다. 그렇게 계속 고치지 않고 가다 시간 다 가고 역사의 경기가 끝나니, 어쩔 수 없이 교체하는 것이다.
21. 자기 잘못된 습관을 못 고치는 교역자, 사명자들이 있다. 그 밑에서 지도를 받는 자들도 못 고쳐서 제대로 ‘휴거’되지 못한다. <자기>를 제대로 고치고 이끌어야 <따르는 자들>도 제대로 이끈다.
22. <말>을 들어 보면 맞지만, <해 놓은 것>을 보면 다르다. 고로 ‘해 놓은 것’을 보고 판단한다.
23. <자기에 관한 보고>는 ‘좋은 쪽’만 하고 ‘고쳐야 할 쪽’은 잘 안 한다.
24. 흔히 사람들은 ‘좋은 쪽’만 말하며 칭찬받기를 원하지, ‘자기가 고쳐야 할 쪽’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산다.
25. <목회의 사명을 맡겼으나 잘 못 하는 자>는 ‘방법’을 달리하여, 그 지역에서 옮겨 ‘다른 지역 교회’를 맡겨도 역시

못 했다. <지역>이 바뀐다고 ‘사람’도 바뀌겠느냐. <고치기 전>에는 ‘목회’를 맡기면 안 된다. - 이것이 답이다.

26. <새 역사>에서는 ‘새 기계’를 쓰기다.

27. <새 역사>에서는 ‘고친 기계’를 쓰기다.

28. 그리도 고치는데 안 고쳐지면 고치다가 일 못 하고 때가 다 가니, 돈이 들어도 차라리 ‘새 기계’를 사다 쓴다.

29. <하나님과 주의 일>인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하지 않는다.

30. <하나님과 주의 일>은 ‘자기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여 그 목적과 뜻을 풀어 드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31.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며 <주의 역사>다. 고로 ‘하나님과 주의 사고와 사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뜻’을 이루게 된다.

32. 이단 교리를 보아라. <비진리, 비원리>이다. ‘자기중심’으로 하니 ‘자기 뜻’을 이룬다.

33.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주가 말씀하신 목표’를 정해 놓고, ‘자기 목표,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다. 행하면서 잘 안 되면 <성령과 주의 목표>이니 힘을 내서 기어이 하고, <여러 방법>을 가지고 주가 맡긴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잘 안 한다.

34. <영원히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면, 제대로 하게 된다.

35. 희망 없는 기성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게으른 신부>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신랑’과 같이 일을 못 하게 된다.

36. <자기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하지만, <하늘>이 보시기에는 ‘보통’이다. 하늘은 ‘속 시원하게 될 경주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겨루어 ‘승리할 자’를 찾으신다.

37. 예수님은 ‘볼 만한 풍채와 외모’는 없었다. 그러나 그 <그릇>은 ‘지구 인생들’을 다 담을 정도로 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 몸’이 되어서다.

38. <그릇>과 <외모>는 다르다.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작다면 귀히 쓸 수 없다. 만일 <풍채> 좋고 <외모> 좋고 <그릇>도 크다면, 쓰기도 좋고 담기도 좋을 것이다.

39. 주를 보아라. <외모>는 볼 만한 것이 없고 <풍채>는 작아도, <그릇>은 한없이 커서 ‘온 세상’을 담는다.

40. <그릇>은 ‘마음과 생각’이다.

41. <주의 그릇>, 곧 <주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같아서 아주 크다. 누가 주를 닮아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자냐.

42.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면, ‘그 행위’도 달라서 사람들도 알아본다.

<2016년 8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43. <표현>을 잘못하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인식이 ‘안 좋게’ 뒤바뀐다.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행위’를 잘못하면, 모두 보고 ‘안 좋게’ 인식이 뒤바뀌게 된다.

44. <표현>을 제대로 잘하는 자가 ‘말의 지혜’를 받은 자다.
45. <표현하는 법>도 운동 배우듯 ‘유능하게’ 배워야 된다.
46. <설명>과 <표현>, 이 두 가지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나타낸다.
47. 어떤 말을 해도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하게 된다.
48. <표현>이 ‘말할 때 애교’다. <표현>이 ‘음식의 소금’이다.
49. 전쟁 때 ‘전쟁의 나팔’이나, ‘경사의 나팔’이나. 제대로 불지 못하면, 어이 없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50. <말의 표현>은 ‘글의 표현’과 같다. <한 글자>를 잘못 쓰면 ‘전체 책의 내용’이 뒤바뀌듯 <말>도 그러하다.
51. 가령 5년 동안 1000쪽이 되는 책 한 권을 다 쓰고, 끝에 ‘나’를 ‘너’로 쓰면, 주인공이 ‘다른 사람’으로 뒤바뀐다. <글 한 자>로 ‘책의 주인공’이 바뀐 것이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글’을 잘 써서 보냈지만, <설교하는 자의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발음을 제대로 못 하고, 내용을 건너뛰고, 고음으로 할 곳을 저음으로 하여 안 들리게 한다. <말씀>은 듣는 대로 행하게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
52. <나>, <너> - 이 한 글자로 ‘책의 주인’이 뒤바뀐다. ‘한 자’를 잘못 쓰면, ‘그 수고’도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섭리사와 주를 가르치고 증거할 때도 그러하다. 잘못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늘 <삼위일체와 주>를 ‘머리’로 삼고, 어느 때에도 자기중심으로 흐르지 말고 증거해라. 그러면 삼위도 주도 빛나고, 너도 빛난다. <한 글자>로 ‘책 전체’가 좌우되듯, <너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로 ‘전체’가 좌우된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심각하게 말씀하신 계시다.
53. <말 하나>도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상황’으로 뒤바뀌고, <글 한 자>도 틀리면 ‘주인공’이 뒤바뀌듯, <행실>도 제대로 안 하면 ‘그 일의 운명’이 뒤바뀐다.
54. 남자의 ‘X염색체’와 결합되느냐, ‘Y염색체’와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성별>이 좌우되듯, ‘자기 한 마디, 자기 행실 하나’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55. 철저하게 글을 쓰고 말로 표현하듯, <행실>도 온전하게 잘 표현하면서 해야 된다.
56.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행실 표현>이 잘못됐으면, 모두 보고 그 사람과 같이 하게 되고, 곧 ‘그릇됨’을 알게 된다.
57. <표현>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글>을 바로 쓰고, <말>을 바로 하고, <행실>을 바로 하겠다. - 이는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다.
58. 어디서나 어지러우면 ‘손으로 잡고 자세를 낮춰 앉는 것’이 응급처치이듯이, 그때마다 ‘말과 글과 행실의 표현을 잘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59. <사랑의 길>은 가깝지만, ‘반복’해서 행하면서 가야 하니 멀다.
60. (초안) <인생길>을 쉽게 가는 자일수록, 때마다 둥글둥글하게 굴리면서 간다. 그냥 하면 느린데, 둥글둥글하게 굴리면서 하면 빨리 간다.

1.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10배, 100배 더 강하다.
2. 사람은 <생각할 때까지>만 기억하고, <기억할 때까지>만 생각한다.
3. 어떤 말이 생각나서 글로 쓰려고 펜을 들었다. 펜 끝이 1cm만 종이에 닿으면 쓸 수 있는데, 그런 도중에 '생각하던 것'이 사라졌다.
4. <기억>을 계속해야 <그 일>을 계속하게 된다.
5. <보이는 육>이 '육계'에서는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실체적인지 알아라.
6. <보이지 않는 영>이 '육이 안 보이는 데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고 그 능력이 무한한지 알아라.
7. <자기만의 비밀>이 얼마나 권세 있고 세력이 큰지 알아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자기만이 아는 권세와 능력>이며 <자기만이 소유하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다.
8. <1대1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 권세가 그리도 크다. 이는 '둘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그 둘만 '특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
9. <자기 홀로 아는 비밀>이나 <상대와 1대1로 아는 비밀>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뇌에 저장된 것'을 보고 아신다.
10.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라도 <상대와 1대1로 아는 비밀>이라도 '행할 때'는 모두 다 알게 된다. 고로 '신'만 알도록 행해야 끝까지 비밀이 보장된다.
11. <몸 전체>가 '확대시킨 뇌'다.
12. 뭐든지 <몸>에 닿기만 하면 그것을 느끼게 되듯, <뇌>도 생각만 하면 생각한 것을 다 느낀다.
13. 육이 못 보는 데서 행하는 <혼과 영의 권세>는 참으로 크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영의 존재자'이다. 고로 <안 보이게 하는 일>이 그리도 많다. 그 권세는 엄청나다.
15.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하고 모르게 하는 것>이 곧 '능력'이며 '권세'다.
16. <사람>은 '절대자 삼위일체'에게 안 보이게 행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삼위일체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뜻이 아닌 것'을 행하면 심판도 받고,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막기도 하고 틀기도 하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17. 어떤 장소를 정해 놓고 <뇌>에서 '기억'하면서 걸어가다가, 중간쯤 갔을 때 '기억했던 것'을 뇌에서 잊으면, 그 장소에서 멈추게 된다.
18.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멈추듯이, <뇌>에서 '생각'과 '기억'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생각이 멈추게 된다.
19. 그러나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자기가 행한 일들>은 '생각과 기억'에서 잊어버렸어도, 이것은 <이미 행한 것>이니 '뇌'에도 '실제'로도 남아 있다.

<2016년 8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상징체>는 ‘본체, 실체’를 기억나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2. <상징체>가 ‘본체의 형상’과 똑같지 않아도 ‘본체감, 실체감’이 나게 한다.
3. <상징체>가 ‘본체, 실체의 형상’과 전혀 달라도, ‘실체’를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
4. <상징체>에 빗대어 <본체, 실체>를 보게 된다.
5. <성자바위>는 ‘성자 본체의 상징 돌’이다. ‘성자 본체의 형상’과 똑같지 않아도 ‘사연’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생명의 역할’을 크게 하고 ‘감동’을 준다. - 이것이 의미 있다.
6. <상징체>는 ‘사연’이 있어야 더 의미 있다. ‘사연’도 없는 전혀 다른 것을 ‘상징’으로 정하면, 의미가 없다.
7. 깊은 비밀이 있을 때, 타인이 모르게 ‘상징체’로 정한다.
8. <상징체>는 ‘사연’과 함께 정한다.
9. <성령님 본체>는 안 보인다. 고로 ‘사연이 있는 자, 사연이 있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보여 주신다. <상징체>는 ‘사연’이 있어 정했고, 그로 인해 ‘의미’가 있다. 고로 <상징체의 모양과 형상>이 ‘실체’와 똑같지 않아도 성령님이 <상징체>를 보이면서 말씀하시면, 그 <상징체>가 ‘성령 본체, 실체를 보이는 역할’을 해 주고 ‘성령 본체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해 준다.
10. <상징체>는 ‘사연과 의미’가 <본체, 실체>와 연관되어 있어야 실감 있다.
11. <큰바위얼굴바위>는 ‘시대 보낸 자의 상징’이다. 그 바위는 ‘보낸 자와 얽힌 사연’이 있고, ‘보낸 자의 모양과 형상’도 있다. 고로 <보낸 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정했을 때 ‘의미’도 크고 ‘실감’도 나는 것이다.
12. <아무런 사연도, 의미도, 모양도 없는 사람이나 존재물>을 ‘본체, 실체의 상징’으로 정하면, ‘실감’도 없고 ‘의미’도 없다.
13. 어떤 존재물도 <본체, 실체>를 상징하려면, ‘사연’을 만들어야 된다.
14. 같이 사는 부부는 ‘서로 상징체’다. 닮지 않았어도 <생각과 행실>이 같고 <사랑>하며 사니 ‘상징체’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상징체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16. 많은 사람들이 지구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얼마나 삼위일체의 생각과 행실과 하나 되어 사느냐, 얼마나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사느냐’ 그 차원에 따라서 <삼위일체의 상징체>가 되어, 그를 통해 ‘삼위’를 보고 느끼며 실감나게 함이 좌우된다.
17. <화, 혈기, 분노>는 ‘자신’에게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대’로 인해 일어날 때가 훨씬 더 많다.
18. <사랑>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
19. <영>은 ‘영원’하다. 그러나 <영원한 영>이라도 ‘사망’으로 가면 육체같이 늙고, 쭈글쭈글하고, 피골상접 하다.

20. <사랑의 감정>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일어날 때가 많다.

21.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부터 일어나고 ‘상대’로부터 일어난다. <발생지>는 항상 ‘자신과 상대’ 두 군데다.

22. <교통사고>도 ‘자기’로 인해 일어나고 ‘상대’로 인해 일어난다. 항상 ‘주체와 상대’로부터 일어난다.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한 교회에 <두 사람>을 세우니 어떤 자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자들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고로 ‘두 개’로 갈라지고 끼리끼리 뭉쳐진다. 오직 ‘주 중심’으로 해야 모두 하나로 뭉친다.

2. <의인들이 영광 돌리는 기간>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3. <죄>가 있으면 ‘건설’을 못 한다. ‘건물을 지을 목재’가 다듬어지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4. <회개>는 ‘건물을 지을 재료인 목재를 다듬는 것’과 같다.

5. <죄>는 ‘육신의 짐’도 아닌데, <죄>를 지으면 육의 삶이 무겁다.

6. 죄를 지으면, <육신>이 ‘어떤 짐’을 진 것 같지 않다. <영>도 실제로 ‘죄의 짐’을 지고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죄를 지은 만큼 ‘기능’을 못 하고 ‘활동’을 못 한다.

7. 죄지은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어느 때는 <영>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다. <그 육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의 짐’으로 보여 준 것이다.

8. 영계에서나 육계에서나 <죄지은 자>가 눈에 보이게 ‘죄의 짐’을 지고 다니지는 않는다.

9. <의>도 그러하다. 의를 행하여 <의>가 ‘큰 빌딩’만큼 쌓였어도 ‘의를 지고 다니는 것’이 보이지는 않는다.

10. <영적>으로 보면 ‘죄인의 표시, 의인의 표시’가 있다. 곧 <영이 입은 옷>으로 표가 나고, <영이 가진 빛>으로 표가 나고, <행하는 행실>로 표가 난다. 천사들은 <계급>으로 표가 나거나, 혹은 <날개의 모양>으로 표가 난다.

11. 최고의 의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성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12.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같이 살지 못한다. 고로 우상 앞에 음식을 드리고 절하고 인사하고 간다.

13. 살아 계시어 상천하지와 영과 육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절대신 삼위일체는 우상 섬기듯 섬기면 안 된다. 음식 놓고 절하고 인사하듯 대하지 말아라.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생활 속에서 부르고 교통하고 사랑하며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된다.

14. <영과 혼>을 중심하면 ‘영이 주체’가 되고, <육>을 중심하면 ‘영이 대상’이 된다.

15. <중심>을 두기에 따라서 ‘대상’이 결정된다.

16. <영>이 ‘주체’가 돼야 ‘영적’으로 살게 된다.

17. <주>를 중심하면 ‘주가 주체’가 되고, <자기>를 중심하면 ‘주가 대상’이 된다. 그러면 <주>가 이끌고 갈 수가 없다.

18. <손>은 ‘뇌와 생각의 확대체’다. 생각하는 대로 흐르듯이, 손이 그 순간 어떤 것을 하면서 쓰는 대로 된다.

19. <손>이 ‘뇌가 지시한 일’을 가장 많이 한다. 그다음이 ‘눈, 귀, 입’ 등이다.
20. <보이는 뇌>는 ‘눈, 코, 입, 귀, 손, 발, 몸’이다.
21.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 둘만의 이야깃거리’다.
22.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이야깃거리’이지, ‘타인과의 이야깃거리’가 아니다. ‘자기’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
23.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의 이야깃거리다. ‘타인’과는 이야깃거리가 안 된다.
24. <사랑>은 ‘해당되는 자와의 이야깃거리’다.
25. 만사의 모든 것들이 ‘해당되는 자와의 이야깃거리’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대화하자. 둘만의 이야깃거리다. 그 사랑은 아무도 모른다. 그 사연은 아무도 모른다. 영원히 사랑하며 살 주체와 대상이다.

<2016년 8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할 일>인데, 안 해서 문제가 생긴 일은 하나도 없다.
2. 인간은 어떤 일을 할 때 ‘장단점이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면 ‘그런 점’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면, ‘다 장점’이다.
3.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줬다면 사고도 안 나고 죽지도 않고 살았을 것인데, 안 도와줬다고 원망만 하고 서운하다고 하며 생각도 돌리고 <등>도 돌리고, 믿어도 오해하며 믿어,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같이 생각해 버린다.
4. 하나님은 합당하면 돕고 행하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두시고 그 사람 자신이 행하게 하신다.
5.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대하신다. 고로 <행위>에 따라서 돕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도움’을 막으니 돕지 않으실 때도 있다.
6. 하나님은 ‘어떤 사고’가 있기 전에 항상 미리 깨우쳐 주신다. 그러나 사람이 그 감동과 영감과 직감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있고, 책임을 안 할 때도 있으니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혹은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않으니 돕지 않으셔서 ‘그 죄’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7. 전능하신 하나님은 ‘행할 것’은 행하시고, ‘도울 자’는 도우시고, 악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하신다.
8.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인 ‘태양, 지구, 달, 바람, 공기’ 등도 할 일을 다 하는데, 그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신>이 할 일을 안 하시겠느냐.
9.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볼 때 ‘저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작품’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개미 집’ 같겠지요?” 하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하여 조용히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말씀하셨다. “사실 <내가 한 일>에 비하면 ‘개미 집’ 같기보다 ‘명주실 한 오라기’를 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도 ‘네가 보는 크기’로 봐야 내가 너와 ‘생각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 고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생각하는 것들과 너의 심정을 다 느낀다.” 하셨다.

1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각 차원대로, 생각대로, 그 사람이 보는 대로’ 보고 느끼신다. - 고로 ‘인간의 마음과 심정’도 아시고, ‘그 행위’도 아시고, ‘신혼골수’를 살피신다.

1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육신’을 쓰고 <그 급의 차원>에 맞춰서 ‘그 마음과 행실’을 다 느끼시고, ‘그 하는 일의 모든 것’을 다 느끼신다. 그렇게 보니,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것이다.

<2016년 8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길도 <직선>은 바로 끝난다. 말도 <직선>으로 하면 바로 끝난다. <돌려서> 해야 고기 삶듯 오랫동안 푹 삶아진다. 고로 맛있다.

2. (그림) <직선>으로 가면 10m인데, <돌아서> 가면 70m다.

3. <짧은 거리>에 작품을 만들려면, ‘이리저리 돌려서 여러 길을 닦으면’ 된다. 그러면 작품이 되어 오랫동안 구경할 수 있다.

4. 지구도 <직선>으로 가면 금방 끝난다. 그러나 지구에는 ‘이리저리 돌려서 여러 길’을 만들어 냈기에 ‘사용 면적’이 많다. 돌아가면 ‘긴긴 역사’로 가게 된다.

5. 말도 <직선>으로 하면 금방 끝나서 좋지만, 그러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오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도 주게 된다.

6. 말도 <직선>으로 하지 말고 <돌려서> 해라. 증거도 그러하다.

7. (그림) 소로 길은 고속도로보다 아름답다. <직선>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여러 길>이 나 있기 때문이다.

8. (그림) 똑같은 5m짜리 자연석도 밋밋하면 미끈한 작품이지만, 다섯 군데가 개미허리같이 들어가 있으면 5배나 아름답고 신비한 작품이 된다.

9. 똑같은 50m 길이의 천연 굴이 있다 하자. 이 굴이 터널같이 미끈하면 ‘일자 작품’이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희귀한 작품’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마음과 생각과 행실의 모양이 다양할 때’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함을 느낀다.

10. (그림) 용수철도 <직선>으로 켜를 때 5cm라면, 어느 정도 돌렸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돌린 것을 펴면> 10~20배는 더 길어진다.

11. (영상) 치타도 사냥할 때 <직선>으로만 달리지 않는다. 시속 130km의 엄청난 속도로 좌우로 이리저리 방향을 틀어 달린다. 고로 그 모습이 참으로 신비하고 기묘하다.

12. 치타 작품을 볼 때도 ‘가만히 있는 모습’보다 ‘치타가 기묘하게 달리는 특징을 살린 모습’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비싸다.

13. 돌의 모양이 이상적으로 멋있게 생겼으면 ‘이상적인 돌 작품’이라 한다.

14. 돌의 모양이 괴상하게 생겼으면 ‘괴석’이라 한다.

15. 동물도 <색깔>이 알록달록하면 ‘신비하다.’ 한다.

16. 동물 중의 치타는 유달리 허리가 잘록하고, 가죽에 알록달록 점이 박혀 있고, 예쁘장하게 생겼다. 게다가 지상에서

는 제일 빨라서 ‘빠르기 왕’이다. 최대 시속 130km까지 뛴다. 왜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보다 빠르게 창조하셨을까?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 <첫 번째 이유>는 ‘동물이 사람보다 느리다면, 사람들이 동물들을 일순간 다 잡아먹기 때문’ 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동물은 매일 뛰니까 빠른 것을 유지한다.’ 하겠다.

17.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 ‘영원’하지 않다.

18.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계’가 없으니, ‘영원’하다.

19. (그림) <직선>은 바로 ‘한계’를 맞는다. <돌아가면> 적어도 ‘3배’는 길다.

20. 말도 <직선>으로 하면, 바로 ‘한계’가 온다. <돌려서> 하면 ‘한계’가 멀다. - 증거도 그러하다.

21. <점진적>으로 하면 ‘한계’가 와도 천천히 온다. 돌려서 하여라.

<2016년 8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일을 놓고 그것에 대해 <기회>가 ‘여러 번’ 온다면, <첫 번째 기회>의 때>가 제일 하기 쉽다.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부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2. 잠을 자면 못 느끼듯, ‘생각에서 잊으면’ 못 느낀다.

3. 잤어도 ‘생각의 잠’을 자면 모른다.

4. 봤어도 들었어도 ‘생각의 잠’을 자면 모른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셔도 ‘생각의 잠’을 자면 모른다.

6. 처음에 <지구 세상>을 만들 때 ‘불덩이’로 녹여서 만들었다. 고로 자연스럽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되었다.

7. <천연 굴>도 ‘불’에 녹아지며 만들어졌기에 자연스럽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되었다.

8. <너>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녹여 자연스럽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9.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창조하시고 ‘흠’ 없이 창조하셨다. 모든 일들도 ‘만족’하게 하시고, ‘흠’ 없이 하신다.

10. 너의 인생은 ‘한 번의 삶’이다. 또 살라고 하면 못 산다.

11. 반복의 코스는 지루하다.

12. <인생길>은 각 코스마다 ‘한 번’뿐이다. 고로 지루하지 않다. 그러나 잘못 살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평생, 영원히 후회다.

1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간의 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인간을 창조했어도 허무했다.” 하셨다.

1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간을 창조할 때 <육>과 함께 <혼과 영>도 창조했기에 <그 육신>이 죽어도 허무하지 않다.” 하셨다.

15. 하나님은 <인간의 혼과 영>을 같이 창조하여 허무하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어 <인간의

혼과 영>이 영원히 살도록 '길'을 내주셨다. 고로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 <자기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자기 육>을 가지고 <혼과 영>을 구원하고 휴거시키고 살아야 - 허무하지 않고, 참보람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육 평생, 영 영원히 산다.

16. <마음>을 뺏는 자가 <몸>을 뺏는 자다.

17.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라.

18. 사랑해라. 배워라. 행해라.

19. 누구를 사랑해야겠느냐. 영원하신 삼위일체다.

20. 무엇을 배워야 되겠느냐. 영원한 것에 대해서다.

21. 무엇을 행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들이다.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마귀는 '악한 영'이다. '악종'이다. 그 행함이 '모두 악의 행위'다.

2. 마귀는 '1mm'만 움직여도 '악의 행위'다.

3. 마귀는 '한 자'만 말해도 '모두 악한 말'이다.

4. <마귀>는 본래 '천사'였고, 하나님의 수종을 들면서 '천국'에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 고로 '천국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사니 '움직이는 것'마다 '악한 행위'이고, <제 생각>대로 행하니 '악한 존재'로 변하여 '완전히 악한 영'이 된 것이다.

5. <마귀>는 본래 '천사'였다. <천사>도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같이 '악한 영'이 된다.

6.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려는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의 주권권, 시대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심판'을 받고, 거기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니 '악한 자, 악한 영'이 된다.

7.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다. 하나님이 '사랑의 창조 목적의 뜻'을 말씀하시며 "동산 중앙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했다.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과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고로 <행하는 것>마다 '죄'가 되었고, 그 <육>도 <영>도 '악에 속한 자'가 되었다.

8.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생각'을 중심해서 살아가니 '하는 것마다 악'이 된다. 그로 인해 <육>도 '악인'이 되고 <영>도 '악한 영'이 된다.

9.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 심판 받고 쫓겨나 '악한 존재'가 되었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심판받고 쫓겨나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악한 존재'가 된다.

10. <인간>이 잘못하면 '끔찍한 악한 존재, 마귀'같이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달아라.

11. 영계에 가서 보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며 온 나라와 세계인들이 추종하고 영광을 누리던 자들'이 <지옥>에 가서 '악한 마귀 같은 영'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12. 세계인들이 추종하던 자의 영이 <지옥>에 간 것은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고로 계속해서 그를 추종하며 그와 같이 행한다. 그러다 추종자들의 육신이 죽으면, 그 <영>도 ‘악한 영’이 되어 ‘악의 세계’에 가서 고통받으며 산다.

13.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죄다. 그로 인해 <선하다는 인간>도 ‘악한 자’가 되고, ‘극의 악한 영’이 되어 ‘악한 영의 세계’에 간다.

14.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목적의 뜻을 행하시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인간들의 죄의 핵이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의 뜻>을 행하시려고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 뜻을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천사’가 쫓겨나듯 심판받고, 세상에서 ‘자기 생각, 자기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로 인해 결국 ‘악한 육, 악한 영’이 되어 ‘사망’에 처해 ‘마귀’같이 살아간다.

15.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떠나면, 그 육도 영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니 ‘행하는 것마다 악’이며, ‘하나님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 고로 인간으로서 ‘마귀같이 악한 자, 악한 영’이 되어 산다. 인간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대하고 타락한 천사같이 ‘악한 자, 악한 영’이 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권>을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며 살게 된다. 고로 <행하는 것>마다 ‘모두 죄’가 된다. <하나님 주관권 밖>에서는 ‘선’을 행해도 ‘그 주관권에 해당되는 선’으로서 거기서 존재하다가 끝난다.

17. 전기와 전기선이 연결되어 불이 들어오듯, 전파와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대화하듯, 나무와 뿌리가 연결되듯 <인간>은 ‘각자 개성’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된다. <연결>이 끊어지면 ‘자기 생각, 자기중심, 자기 주관의 삶’을 살게 된다. 고로 ‘악한 자, 악한 영’이 된다.

18. <참포도 원 가지에 붙지 않은 가지에서 난 열매>는 살아 있어도 ‘돌포도’다. 이와 같이 <삼위와 주의 원 가지에 붙지 않은 자>는 살아 있어도 ‘악의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다.

19. <참포도 열매>가 아니면 주인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20. <주인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취하면 도둑질이다. 고로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면 ‘한 톨’도 가져오지 않는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한 인생’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과 붙은 자>만 ‘하나님의 생명’이니 취하신다. <하나님께 붙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절대 ‘사망권의 것’이니 취하지 않으신다.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21.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잘하면 ‘선한 자, 선한 영’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잘못하면 쫓겨난 천사같이 ‘악한 자, 악한 영’이 되어 버린다.

22. <글씨>도 자기가 잘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예쁘게 쓰게 되고, 자기가 못하면 잘 못 쓰게 된다. 얼마든지 자기 능력이 있어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잘하면 얼마든지 잘 지킬 수 있고, 자기가 못하면 못 지키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잘하면 ‘구원받은 선한 자, 선한 영’이 되고, 못하면 ‘악한 자, 악한 영’이 된다.

23. 잘하면 ‘천국의 사람, 천국의 영’이 되고, 못하면 ‘사탄의 사람, 사탄의 영’이 된다. -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이리도 무섭다.

24. 매일 잘하기다.

25. 처음에는 잘해서 ‘선한 영, 빛난 영’이 되어 살았는데, 가다가 잘못하여 ‘악한 영’이 되었다.

26. 잘하면 얼마든지 잘된다. 참고 견디고 잘하기다.

27. 자기 동료, 자기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다가 떨어지면, 땅에 닿기 전에 잡기다. 서로 잡아 주기다.
28. 사랑하는 자는 100% 잘못했어도 100% 이끌어 낸다. 원수 마귀나 세상에 명지 털 만큼도 안 내준다.
29. (그림) 사랑해도 배신하고 선(線)을 넘어가면, 손이 안 닿는다. 그럴 때는 발로 끌어당겨 내 것이 되게 한다. 양발로 깍지를 끼서 집게발을 하여 물고 끌어온다.
30. 1999년 1월, 환난으로 인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갈 때다. 기내에서 화면이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이었다. 그것만 나왔다. 황태자와 그의 아내가 많은 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남자가 먼저 절벽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밑에서 여자를 받쳐 주면서 적들을 피해 갔다. 한번은 적들이 그들을 잡아 놓고 “이제 잡았다!” 하며 마음 놓고 잔치하며 먹고 즐겼다. 그러다 그들이 줄 때 둘은 그곳을 빠져나갔고, 문 앞에서 지키는 자들을 무술로 쳐내고 벗어났다. 남자가 여자에게도 무술을 가르쳐서 여자도 잘했다. 때로는 여자가 자기 능력껏 날아다니며 싸우기도 했다. 결국에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하니, 둘이 쪼개져서 싸웠다. 결국 적들을 다 이기고, 둘은 성을 다시 차지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새로운 정치를 했다. 하나님은 “<섭리사 환난기>도 결국 이같이 되니 걱정 말아라.” 하셨다. 결국 이같이 되었다. <계시>는 어디서나 ‘해당되는 것’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31.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보내어 행하시니, 예정대로 이긴다. 시대 구원자는 섭리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기고 나왔다.
32. 하나님이 지면, 이 땅에 이상세계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적도 못 이루고 끝난다. 고로 꼭 하신다. 꼭 이기신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못 한 자들은 ‘인사탄’이 되어 물러갔고, 하는 자들을 통해 결국 ‘휴거’를 이루셨다.
33. 시행착오는 인간이 일으킨다.
34. 시대 구원자는 <야심작>이 무너져도 기어이 다시 쌓았듯이, 무너져도 기어이 하고야 만다.
35. <야심작>이 무너졌을 때 ‘실망’도 솟고 ‘희망’도 솟았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대희망’이 더 높이 솟았다. 곧 ‘더 좋게 쌓아야지.’ 하는 희망이었다.
36. 결국 <그 전에 다섯 번째까지 쌓았던 야심작>보다 ‘최고로 더 좋게’ 잘 쌓았다.
37. ‘도전해서 전보다 더 차원을 높여야지.’ 하는 희망이 솟아야 된다.
38. 전도한 사람이 나가면 ‘전보다 더 좋은 사람 전도해야지.’ 하고 전도해라. 그래야 후회가 안 된다.
39. 나간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세우고 살아야 평생 기뻐 잔치한다. 못 하면 늘 자책하면서 고통을 겪는다.
40. 섭리역사도 하나님은 ‘더 좋게 할 자’를 세워서 행하시니, 전 역사보다 더 좋게 된다. 고로 후회가 없다.
41. 더 잘하여 ‘전보다 더 잘 만들기’다. 그래야 사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고 기뻐한다.
42. 만일 ‘전의 것’이 더 좋은데 무너졌다 하자. 그보다 후에 더 못 하게 만들었으면, 괴로워서 사연 이야기를 못 한다.
43. 글씨도, 그림도 전의 것보다 더 좋게 해 놓고, 사연 곡절을 간증하는 것이다.
44. <금붕어> 놓치고 <붕어> 잡았다고 이야기하면, 듣는 자들이 듣고 “찜찜하다. 답답하다.” 한다. <금붕어>를 놓치고 수년 동안 더 큰 금붕어를 잡으려고 바다를 누비다가 <인어> 잡았다고 모두에게 보이면서 이야기해야 “나도 그래야지.” 하고 감동받고 좋아한다.

45. 잘하면 ‘천인’ 되고, 못하면 ‘마귀’ 된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운명을 갈라놓는다.

<2016년 8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46. <마귀>는 본래 ‘천사’로서 ‘천국’에서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의 뜻’을 반대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사니, 행하는 것마다 ‘악한 행위’가 되었고, 그로 인해 ‘완전히 악한 영’이 되어 버렸다.

47.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이루려는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 자기중심>으로 살게 된다. 고로 행하는 것마다 ‘죄’가 되고 ‘악한 행위’가 되고, 그로 인해 ‘악한 자, 악한 영’이 된다.

48. (반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떠나면, 그 육도 영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니 ‘행하는 것마다 악’이며,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다. 고로 인간으로서 ‘마귀같이 악한 자, 악한 영’이 되어 산다. 인간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대하고 타락한 천사같이 ‘악한 자, 악한 영’이 된다.

49. (반복)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권>을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살게 된다. 고로 <행하는 것>마다 ‘모두 죄’가 된다.

50. <신약 때>는 사랑으로 ‘자녀를 만드는 창조 목적’이었다. 그런데 자기 뜻을 못 이루니 이 목적을 행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같이 반대했다. 결국 쫓겨난 천사같이, ‘자녀 주관권’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악인, 악한 영’이 되었다.

51. <성약 때>는 절대 사랑으로 ‘신부를 만드는 창조 목적’을 선포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을 못 이루니 타락한 천사같이 반대하다가 쫓겨났다. 결국 신부 주관권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다가 ‘악인’이 되고 ‘사탄의 영’같이 되었다.

52. <육신을 가진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한 천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쫓겨나, ‘악인’이 되고 ‘마귀’가 된 것이다.

53.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최고로 원하는 뜻’이 있으셨다. 곧 <사랑의 뜻>이다. 이에 ‘육신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천사는 “저도 그 일에 써 주세요!”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다. 이에 하나님은 “내 머리가 네 머리만 못하겠느냐.” 하며, 하나님의 머리로 천사의 머리를 받았다. 고로 그 머리가 깨져 비어 버렸다. 비어 버린 머리에 ‘자기 주관’이 들어갔고, 거기에 ‘악’이 가득 차서 ‘악’만 담고 다니는 ‘악의 영’이 되었다. 하나님은 <구약 - 신약 - 성약> 시대마다 새롭게 역사를 펴신다. 이때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된다. 말로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자기 머리’만 쪼개지고 떨어져 나가 ‘세상’으로 쫓겨난다.

54. 천사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을 창조하여 세우려 하니, 그리도 반대한 것이다.

55.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도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간다. 그러나 <천사>는 ‘영물’이라서,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밖에 못 한다.

56.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 ‘더 좋은 뜻, 가장 큰 뜻’을 이루려 하신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말을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사랑, 자기 뜻만 이루기 위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천사같이 행한다. 그러다 결국 쫓겨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뜻을 이룬 자’가 된다.

57.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하자.” 하시면, 자기중심의 생각을 끊고, 자기 기쁨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창조 목적>을 이루어 ‘영원한 이상세계’가 된다.

58. 어느 날 ‘1년에 딱 한 번 수박을 사 먹는 날’이 왔다. 수박을 사 먹으려고 열세 명이 갔는데, 일곱 명만 수박을 샀다. 나머지 여섯 명은 비싸서 못 샀다. 수박을 산 일곱 명 중의 두 명은 그 자리에서 다 먹겠다고 하며 개인이 가지고 갔다. 나머지 다섯 명은 수박 다섯 통을 사서 시원한 물에 넣어 놓고, 매일 한 통씩 쪼개서 수박을 못 산 사람들과도 나누어 먹었다. 그러니 5일 동안 싱싱한 수박을 모두가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 먹겠다던 두 명은 그 큰 수박을 쪼개 놓고 혼자 먹으니, 5일도 못 가서 먹는 중에 변해 버렸다. 냉장고도 없는데 날씨가 더우니 바로 변해서 썩었다. 인생도 이와 같다.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가지고 인생들을 이끌어 주신다. 고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라! 때가 되면 ‘뜻’이 이루어져 매일! 영원히! 누리게 된다.

<2016년 8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한마디’를 전해 주겠습니다. - <존재물의 성분>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독성>이 있으면 ‘엄청난 해’를 주고, <해독 성분>이 있으면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존재물의 성분>이 무섭듯이, <인간의 생각>은 참으로 무섭다.” 하셨습니다. - 어떤 <성분>이냐에 따라서 ‘사약’이 되고, ‘생화학’반응을 일으키고, ‘맛있는 음식’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생각, 마음, 사상, 성질>이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되고, ‘살인’이 되고, ‘미움’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상세계’가 되고,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 삼위와 주를 믿고 그 뜻 안에서 살면서, <자기 생각과 마음, 사상과 성질>을 온전히 하여 자기 삶을 ‘이상세계’로 ‘천국’으로 만들고, 자기가 처한 곳을 ‘사랑’과 ‘생명’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2016년 8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바늘 하나 만드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리하고 섬세한 기계를 거치고 여러 사람을 거쳐 섬세하게 만들어진다.
2. 생명도 잘되게 하려면 <섬세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가 있어야 하며, <섬세한 관리자들>이 필요하다.
3. 바늘은 ‘섬세하게’ 만들었으니 ‘섬세하게’ 쓰여진다.
4. 바늘을 만들듯이 모든 일을 섬세하게 해라.
5. 누구나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섬세하게 하는 것>이 빠지면 안 된다.
6. 모든 존재 세계에서 ‘섬세함’은 절대적이다.
7. 섬세하게 하면 성공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중의 하나>가 곧 ‘섬세함’이다.
9. 삼위일체는 섬세하시니, ‘섬세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
10. 하나님은 <인간>을 ‘최고로 섬세하게 창조’하셨다. 그중에서도 <뇌>를 ‘가장 최고로 섬세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의 <뇌>와 <각 지체>를 보아라. ‘섬세하게 기능’을 한다. 고로 섬세하게 다뤄야 된다.
11. 환자를 살리려면, ‘섬세한 진찰과 진료’가 절대적이다.
12. 웅장한 건물을 보아라. ‘섬세함’을 무시하고 지으면 바로 무너진다.
13. 월명동 돌 조경도 ‘섬세하게’ 돌을 쌓지 못했을 때는 다 무너졌다.
14. 사람도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인생길 목적지>까지 못 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15. 인생도 신앙도 ‘웅장’하기도 해야 하지만, 웅장한 만큼 ‘섬세함’이 절대적이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16. <휴거 차원>을 높이려면, 섬세해라!

17. 세밀하게 만들지 못한 것들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한다.

18. 모두 정교하고 섬세하게 행해라.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

19. <성공의 비법 중의 하나>가 ‘섬세함’이다.

20.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가장 정교하고 세밀하게 창조’하셨다. 고로 누구든지 ‘정교하고 섬세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누구든지 정신일도 해서 하면 ‘섬세하게’ 할 수 있다.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21.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각각 해당되는 곳에 쓰라고 다 창조해 놓으셨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찾아서 써라.

22.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배워라. <영의 세계>는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정교하고 섬세하게 다스리는 세계’다.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늘 소통해라. 그래야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보고 배우고 알게 된다.

23. 이제부터 ‘존재물의 정교하고 섬세한 부분’을 찾아서 보고 깨닫고, 이를 창조하시고 알려 주신 삼위일체께 감사하고 삼위를 사랑하며 매일 대화하면서 보람 있게 살아라.

24. 세상 음식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야 그 맛이 뛰어나서 ‘정교하고 섬세한 뇌’에까지 자극을 주어 ‘극치의 맛’을 느끼게 하고 기쁘게 한다.

25. 매일 ‘정교함’과 ‘섬세함’을 잊지 말고, 찾아서 합당한 곳에 써라.

26. 글을 쓰고 교정하는 데도 ‘섬세함’이 생명이다.

27. 주를 따라 휴거됐으니 - 이제는 매일 회개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사탄과 세상과 불의와 악과 자기 육성과 싸워 이기면서, 더욱 섬세하게 ‘자기 생각과 행위’를 살펴라. 그래야 <휴거 차원>을 높인다.

28. 작품을 만들 때도 ‘섬세함’이 빠지면, 짜릿하고 깊은 느낌을 못 받는다.

29. <섬세한 물건>인데 ‘섬세하게’ 못 쓰면 가치가 상실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흑자도 안 난다. 사람도 그러하다. <섬세한 사람>인데 ‘보통’으로 대하면 교통이 안 된다. ‘하나’가 안 된다. ‘가치를 상실’한다.

30.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정교함과 섬세함’이 전지전능하시다. 고로 삼위일체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하며 사랑하고 사는 자’는 삼위일체와 금방 통한다. <물과 물>이 통하고, <불과 불>이 통하고, <쇠와 쇠>가 통하듯 바로 통한다. <전파>가 맞으면 통하듯, <심정>이 맞으면 통한다.

31. 정교하고 섬세하게 생각하고 행하고 만들어야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을 느끼게 하고 ‘감동’을 준다.

32. <인간>이 무엇이냐. -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못 깨닫고 산다. 혹은 깨달아도 ‘자기 수준의 차원’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산다.

33. <인간>에 대해 합당하게 말할 것들이 많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창

조한 존재'가 곧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왜 창조했겠느냐. '영원히 사랑하며 살기 위해 창조'하셨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한 이유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하며 살기 위함'인 것과 같다. 하나님도 이같이 <목적>을 두고, '육신 일생, 영 영원까지' 사랑하며 살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긴 역사>를 두고 행하시고, <인생 일생>을 성장시키며 해 나가신다. 그래도 믿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사니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제대로 못 산다. 옛 시대도,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알고 삼위와 보낸 자를 알고 따르며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을 데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항상 가르쳐야 된다. 이미 이 시대에 <창조 목적>을 이루고 계시니, 수시로 꼭 가르쳐야 된다.

34. 할 때 해라. 시간이 가서 환경이 바뀌면 안 해진다.

<2016년 8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의심하며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확인도 못 한다. 확인하며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가서 늙어 죽는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다 확인하겠느냐.

2.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며 평생 확인했다. 그러나 인간 차원의 머리로는 둔하고 미련하니, 아예 상상도 못 한다. 그러다가 시간이 다 가서 늙어 죽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서' 확인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하여 깨닫고 알게 된다.

3. 이 세상에서 "신은 없다. 신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느냐?" 하는 자들은 절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 누구나 그러했다. 그들은 단지 '신이 없다고 <반박>'할 뿐이다.

4.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안 믿고 의심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하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도 아예 깨닫지 못한다. 고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5.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6. <사람의 지능과 생각>으로는 '같은 <사람>이 해 놓은 것'도 '자기 뇌의 한계'를 벗어나서 해 놓으면 이해를 못 한다.

7. 저마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이상'은 못 든다. 이것이 '한계'다. - <생각의 한계>도 이와 같다.

8. 인간은 '자기 생각의 한계 이상'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다.

9.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것>은 '큰 비밀'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이다. - 고로 '삼위가 알기를 원하는 자'만 믿고 알고 누리게 하셨다.

10. <하나님의 행하심>은 '작은 것'이라도 아무나 값없이 의미 없이 아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값>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데'서 온다.

11. <땅의 것을 아는 것>도 크고 크지만, <영의 세계의 것을 아는 것>이 더 크고 크다. <영의 세계의 것>을 알려면 '자기 혼과 영'이 가서 보고 들어야 하고, '육'이 알려면 꿈에 '혼'을 통해 보고 들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셔야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실력'도 있어야 알 수 있다.

12. <아는 것>이 '축복'이다.

13. <육으로 못 보는 것>은 '혼과 영'으로 봐야 된다.

14. 마치 ‘자기를 자기 부모가 낳았다는 것’을 기본으로 믿듯,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은 절대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라.

15. <믿어야> - ‘하나님의 생각’이 함께하여 깨닫도록 감동을 주시고, 창조의 이치를 깨우쳐 주신다.

16. <믿어야> - 뇌에서 작동되어 인정하게 된다.

17. <삼위일체의 행하심>을 ‘알아야’ - 삼위일체가 ‘역사’하신다.

18.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삼위일체가 자기를 돕고 자기와 함께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깨달아라. 이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작은 것도 함께해 주심’에 진정 감사하며, 마음을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다른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눈을 떠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기도할 때 눈을 떠?’ 했다. 그 순간 눈이 떠져서 쳐다보니, 동전 크기만 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문틈으로 들어와서 번개 처럼 나에게 기어 들어왔다. 그래서 총알같이 빠르게 잡아 버렸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모두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니, 기도하고 있는데도 순간 눈을 뜨게 하여 ‘바퀴벌레가 방에 들어와서 내 몸으로 기어 들어와 물고 괴롭히는 것’을 막아 주시고 잡게 하셨다.

19. 잠을 자고 있을 때 큰 바퀴벌레가 몸으로 기어 들어와서 물면, 그 고통이 정말 크다. 그러고는 바닥 깊이 서류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잡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님과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니, “항상 그와 같이 함께한다.” 하며 보여 주신 것이다.

20.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사탄’이 방해하려고 온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니 ‘해충’을 잡았듯이, 평소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자기에게 오는 사탄’을 모두 다 잡아 멸해 버린다.

21. 하나님과 성령님은 ‘예감, 직감, 영감, 감동’을 주시며 역사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이 100분의 1도 못 느낄 때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행하신다.

22. 삼위일체는 때마다 무섭게, 뜨끔하게 깨우쳐 주신다.

23. 삼위일체는 순간순간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고로 항상 ‘삼위일체’를 부르며 ‘삼위일체’께 생각을 집중하여라. 평소에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살면, 너의 생각이 ‘신의 생각’이 되어 판단하고, 너의 몸이 ‘신의 몸’이 되어 행하게 된다.

24. 삼위일체는 ‘그때마다 말씀할 것’이 있으면 ‘말씀, 사람, 만물, 물건, 감동, 영감, 직감, 예감’을 통해 행하신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은 <시대 말씀>이다.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25. <신앙이 깨어 있는 자>는 ‘잠에서 깨어 있는 자’와 같아서 ‘자기에게 해를 주려고 오는 해충’을 잡듯이, ‘사탄·마귀·악한 자·악평자·환난·핍박·어려운 일들’을 모두 물리치고 해결한다.

26. <생활의 잠, 신앙의 잠>을 자지 말아라.

27. <생활의 잠을 자는 것>이란, 생활하다가 ‘자기중심’으로 시간을 쓰고, ‘판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미디어·게임·이성 등 각종 욕성에 빠져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치 ‘운전하다가 자는 자, 조는 자’와 같아서 사고가 나고 만다.

28. <생활의 잠, 신앙의 잠>을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생활의 잠, 신앙의 잠>을 자면 일순간! ‘기다렸던 것’이 지나가고, 어처구니없이 ‘황금 시간’이 흘러간다.

29. (중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신다.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주가 가르친 자만 안다. 주가 말하지 않으면, 주가 가르쳐 준 자에게 배워야만 알 수 있다.)
30. 글을 쓸 때 필요할 때마다 그 글자를 또 사용하듯이, 지난날 말씀하시고 겪은 것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외치게 하신다.
31. 하나님은 때마다 <만물>로나 <생각>으로나 <말씀>으로나 ‘뜨겁게, 뜨끔하게, 무섭게’ 깨우쳐 주신다.
32. <깨달아야> - 계시해 주신다.
33. 모르는데 말씀하시지 않는다. 보여 주시지 않는다.
34. 본인이 ‘깨닫기 위해’ 간절히 물어보고 노력하며 이야기하여라.
35. <말귀를 알아들어야> - 말씀하신다.
36. <이미 삼위일체가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모르는 것>을 연관시켜 기도하고 대화하면 쉽다.
37. <이미 배운 것>이 <모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니, <이미 배운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과 연관시켜 기도하고 묻고 깨달아라.
38. <지난날 삼위일체가 자기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준 것>이 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도하고 대화하면 쉽다.
39. <완벽하게 깨우쳐 준 만물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지고 <현실의 것>도 깨달게 해 주신다.
40. <확실히 아는 것>을 가지고 <모르는 것>을 연관시켜 연구해라.
41.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배운 것,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니면, <모르는 것>과 연관시켜도 못 깨닫는다.
42. 만물과 인간은 공통성이 있다.
43. <보통>으로 보면 ‘보통’으로 보이고, <특별>하게 보면 ‘특별’하게 보인다.
44. 귀하게 존재하고 있어도 - <보통>으로 보면 ‘보통’으로만 보인다.
45. 시간도 - <보통>으로 신경 쓰고 보면 ‘시’가 가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46. 시간을 <귀히> 보고 써야 ‘분’까지 귀히 보이게 되고, 100m를 뛰듯 ‘초’를 다투며 ‘초’까지 귀히 보고 쓴다.
47. 시간도, 만물도, 사람도, 주도 <귀히> 생각해야 ‘귀히’ 보이고 ‘귀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48.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었어도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보통’으로 보고, ‘보통’으로 느끼고, ‘보통’으로 기뻐하고, ‘보통’으로 흥분된다. - 결국 자기 손해다.
49. <자기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 제대로 보이고 느끼고 기뻐한다.
50. <주>도 ‘귀히 보고 행하는 자’만 제대로 알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2016년 8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는 자연 배경과 환경>이다. 더 좋게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보아라.
2.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보면서 행하면, <실체 차원>을 높이고 얻게 된다.
3. <월명동의 산>은 더 높일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산을 더 높일까?’ 하며 공상하지 말고, <생각의 차원>을 100m씩 더 높이고 보면서 행해라. 그러면 산을 100m 더 안 높였어도 ‘행한 것’이 높아져서 ‘실체’를 얻게 된다.
4. <실체>는 ‘큰 개’인데, <생각>의 차원을 높여 ‘호랑이’로 보고 대했다. 그러면서 초긴장하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다. 그러나 놀라지 않고 평소 생각대로 <생각>을 무장하고 대하여 위기를 면했다.
5. <현실>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면, 더 좋게 공상하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6. <현실의 상황>이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보아라.
7. <생각>은 무한하게 차원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행하면, <실체>로도 그만큼 얻게 된다.
8.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을 ‘왕’같이 모시고 살았다. 그와 같은 생각의 차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니, <자신의 인격과 행위>도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져서 실수를 안 하게 되었고, <몸과 마음과 생각의 차원>이 ‘왕’을 상대할 만큼 높아졌다.
9. <보이는 육의 세계 차원>만 높이지 말고, ‘영의 세계’를 보고 듣고 깨달도록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10. 지구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된, 마음에 드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시대 역사’를 펴서 이루신다.
11. <온전한 한 사람>만 있어도 - 하나님은 ‘그’를 상대로 삼고 ‘그 시대에 계획한 역사’를 펴신다.
12. <참포도나무, 참감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 주인이 ‘과수원’을 만들면서 키운다. 7년이 되면 ‘과수원’이 되어 열매들을 따서 먹으며 역사를 편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지구 세상에 하나님과 일체 된 온전한 자 한 사람>만 있으면 - ‘그’를 통해 뜻을 펴 ‘한 세상’을 이루신다.
13.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온전한 한 사람>을 가지고 ‘역사’를 펴 오셨다.
14. 인생의 할 일을 더 하다가 늦게 떠나면 늦게 소원을 이루고, 조금 덜 하고 일찍 떠나면 일찍 소원을 이룬다. 결혼도 그러하고,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15. 할 일이 많은 자는 ‘일찍 서둘러서’ 해라. 이런 자가 ‘빨리하는 자’다.
16. <일찍> 하는 자가 ‘빨리’하는 자다.
17. <늦게> 하는 자는 빨리해도 ‘느리게’ 하는 자다.
18. 느린 자도 <일찍> 떠나면, 보다 앞서가게 된다.
19. “빨리했느냐?” 하면서 <빠르기>와 <속도>도 재지만, 하나님은 “내가 시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

20.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 자는 ‘빨리’한 자다.

21. 느리면, ‘일찍’부터 행해라.

22. <제때 행한 자>는 ‘가장 빠른 자’다.

23. <제때> 해도 다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제때’하면 ‘갖춰져’ 있으니, 그만큼 쉽다.

<2016년 8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가 이루어지는 비밀>을 깨닫고 기도해야 ‘기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2. 기도는 일이다.

3.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놓고 ‘완성할 때까지’ 일해서 끝내듯이, 기도할 때도 <어떤 목적>을 놓고 ‘될 때까지’ 기도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4. 집을 지을 때 완성할 때까지 매일 일하듯 ‘기도의 일’도 그러하다.

5. 집을 지을 때 6개월, 1년은 일해야 완성된다. 기도도 그러하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든지,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든지 ‘완성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한두 번, 열 번, 스무 번 하고 말면 안 된다.

6. <기도>는 목적을 두고 일하듯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해라.

7. 어떤 일은 3년, 5년씩 해서 끝냈다. <기도의 일>도 그렇게 해야 이루어진다.

8. 어떤 일은 10년, 20년, 30년씩 해서 끝냈다. <기도의 일>도 그렇게 해야 이루어진다. 어떤 것은 기도하면 20년 있다가 이루어진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다.

9. 기도하면서, ‘그것에 해당되는 일’을 행해야 된다.

10. 건강관리도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

11. 한 기간 동안 집을 짓듯이 <건강관리>도 6개월, 1년, 3년씩 ‘기도’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

12. 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하려면 3개월, 7개월, 1년, 2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그러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건강 유지’를 해야 되니 계속 운동해야 된다.

13. 기도도 그러하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유지’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14. <기도>는 어떤 단어를 외우듯, 순간 하고 말면 안 된다. 석공이 돌로 기둥을 깎고 다듬듯 오랫동안 해야 된다.

15. 1년 농사짓듯이 <기도의 일>도 해야 된다.

16. 물을 떠 오듯 ‘한두 번 해서 될 것’이 따로 있다. 이런 일은 그만큼 ‘작은 목적의 일’이다.

17. 10m 길을 내느냐, 100m 길을 내느냐, 1000m 길을 내느냐에 따라서 ‘수고’도, ‘내용’도 달라진다. <기도의 일>도 그러하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수고’도, ‘내용’도, ‘기간’도 달라진다.

18.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해라. 목적한 만큼 진정 오랫동안 하여라.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9. 치즈를 만드는 데도 1~3년이 걸린다. 기도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해야 된다.

20.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 기도할 때도 그러하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얻을 것’만큼 기도해라.

21.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아쉬운 문제를 해결하고 끝내기 위함’이 아니다. - ‘자기 신앙을 완성’시키고, ‘전능하신 삼위께 가까이 가서 그 주권권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까지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된다.

22. 병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병은 병원에서 치료하는 데 한 달, 1년, 3년씩 걸린다. <치료>하면서 <기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단순히 ‘병’만 낫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때 ‘다른 것들’을 놓고서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

23. <몇 번 기도하고 마는 자>는 마치 ‘월명동에 돌 몇 개만 쌓고 자연성전을 완성하려는 자’와 같다. 고로 하나 마나 다.

24. 완성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25. 기도해서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안 된다. <자신의 수고로 된 것>인지, <하나님이 낫게 해 주고 함께 해 주셔서 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 그만큼 <자기>가 노력해야 <하나님>도 해 주신다.

26. 조금 말했다고 해 주면, 가치도 모르고 바로 잊는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속지 않으시려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행하며 기도하게 하신다. 고로 기도할 때는 - <기도>를 ‘아예 하나님 주권권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는 과정’으로 삼고 행하며 기도해야 된다.

27. 기도하여 병을 고쳐 주기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28. 하나님은 병만 낫게 해 주고 떠나지 않으신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다.

29.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으신다.

3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이것에 자신 없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고쳐야 된다.

31.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들어 치료하신다.

32. 오랫동안 병을 치료하며 기도해도 안 고쳐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서 병이 나으면, ‘때가 되고, 시간이 갔으니 나았구나.’ 하는 마음이 80% 이상 든다. -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만큼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수고해야 된다.

33. 하나님은 ‘선물’같이 그냥 주시지 않는다. 사실 <선물>도 ‘공짜’는 없다. 이미 그 선물을 받을 만큼 했기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34. <기도>는 ‘삼위와 주와의 대화’다. 고로 기도하면 ‘삼위와 주’와 가까워진다.

35. <기도>는 ‘사탄과 악과 불의와 겨루는 자와 병과의 싸움’이다. 기도하여 순간 이기는 싸움도 있지만, ‘사탄과 악과 불의와 겨루는 자와 병과의 싸움’이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36. 어떻게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기도하여라.

37. 기도해도 <때>에 맞춰 주신다.

38. 10대 때 기도한 것을 20년 후, 30년 후까지 계속 기도했다. 40대가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왜? 첫째, <성장한 후>에 ‘때’에 맞춰 주신 것이다. 성장하기 전에 주면, 줘도 무용지물이다. 줘도 못 쓴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니 ‘때’에 맞춰 주신다.

39. 어느 때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해도 병이 안 낫고, 목적인 일도 안 될 때가 있다. 이때 80~90%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이 해 주실 마음이 없나?’ 하며 포기하고, 자기가 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그러다가 되면, ‘자기’가 한 줄 안다. 기도했기에 - 주신 것이다. ‘때’에 맞춰 주신 것이다.

40. 기도해도 ‘정말 진정으로’ 해야 된다.

41. 산삼 캐러 다니는 자들은 1년, 3년, 5년씩 산을 돌아다니다가 ‘산삼’을 만나서 캔다. - 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해라.

42.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자들도 1년, 3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찾다가 만난다. - 기도도 이런 마음으로 해라.

43. <단순하게 해서 될 작은 것>도 있다.

44. <한 시간, 열 시간, 며칠 걸려서 할 작은 일>도 있다. 그러나 <몇 년씩 걸리는 큰일>도 있다. <큰일>을 놓고서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행해야 된다. 매일 해야 된다. 수시로 해야 된다.

45. 어떤 일을 놓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일하듯이, 기도도 그러하다. ‘목적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거기에 관한 것을 행해야> 된다.

46. 인생들이 구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도 그가 ‘하나님 편의 일’을 해 주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고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자기>만 해서 된 것 같아도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함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47. <난자>는 자기 혼자 생명을 잉태한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가 ‘같이’ 해서 생명체가 되어 사람이 된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러하다. <자기>도 구하고 행했고, <하나님>도 도우셔서 된 것이다.

48. 항상 혼자 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한 자>도 있고, <하나님>도 행하시고 도우셔서 된 것이다.

49. 섭리사 일도 자기 혼자 했다고 하지 말아라. <기도한 자>도 있고, <자기 몰래 행한 자>도 있고, <삼위일체>도 같이 하셨다.

50. 계시도 혼자 받느냐. 그럼 자기 의지, 자기중심의 계시다. <자기>도 행했고, <주>도 행했고, <하나님과 성령>도 주셨기에 받은 것이다.

51. <손>이 혼자 했다고 하지 말아라. <뇌>도 같이 했다.

52. <각 지체>가 각각 할 일을 했어도 혼자 했다고 하지 말아라. <뇌>가 각 지체에 연결되어 지시하고 힘이 되어 같이 했다.

53. <뇌>도 혼자 했다고 하지 말아라. <지체>도 함께 하고 <삼위일체>도 함께 하셨다.

54. 이와 같이 <자기>가 혼자 했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연결되고 힘이 되어 같이 하셨다.

55. <각 지체>가 행하면 <머리>, 곧 <뇌>가 같이 해서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주>도 ‘같이’ 해서 된 것이다.

56. 하나님이 보내어 삼위의 육신 역할을 하는 <구원자>는 매일 기도한다. 하루라도 빼놓으면 문제가 생기고 해를 당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7. <주인>이 말 한 마디라도 해 놓고 가면, <일꾼들>이 일한다. 이와 같이 <구원자>가 꼭 기도해야 된다. 고로 하나님은 절대 기도하게 하신다.

<2016년 9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설득> 먼저 시키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인다.

2.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인식되어서 그런 줄로 생각된다.

3. 사람의 생각은 ‘극과 극’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달리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릇된 것’을 모르고, 다시 온전히 알고 생각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평생 그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며 살아간다. 그러다 ‘흑암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지구 세상에 수십억 명이다.

4. <우상의 주체>와 <우상을 섬긴 자들의 영>은 지금 ‘지옥’에 가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하며, 그로 인해 ‘좋은 영의 세계’에 가는 줄 알고 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기본의 착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 ‘착한 마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인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같이 살아야 <그 영들>만 ‘천국’에 오게 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4대까지 형벌하시고, 그들 스스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5.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식하고 믿는다고,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믿고 가는 길’을 좋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좋은 길, 옳은 길’로 여기고 사는 것이다. 한 번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면, 자기가 그릇됐다는 것을 모른다. 다시 온전히 알고 생각이 뒤집어질 때까지 ‘자기가 판단하고 인식한 것’이 절대 맞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그리함으로 ‘사망권의 인생, 사망권의 영혼’이 되는 것이다.

6. <불의>라도 그것을 자기가 행하고 살면, 그것이 맞다고 인정한다.

7. 엄연히 <불의>이며 <죄>인데 그것이 ‘자기 생활’이면, 그것을 불의나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8.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권권 속에 사는 섭리인들은 모두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춰야 된다.

9.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 이것은 ‘자기 생각’이다.

10.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절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외의 다른 신’은 다 멀해야 가는 나라다.
11.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자기 뇌’에 인식되어 - <불의>를 행하며 살아도 그것을 ‘생활’로 여기고, ‘자기 생각과 행위’가 무엇이 온전치 못한지 모르고 살아간다.
12. <의롭게 사는 자>는 ‘의롭게 인식’되어 살아가고, <불의하게 사는 자>는 ‘불의하게 인식’되어 살아간다. <의>는 알 아도, <불의>는 모르니 <불의>를 ‘의’로 알고 살아간다.
13. <자기 생활의 행위>가 ‘뇌’에 입력되어 있다. 그렇게 <뇌에 입력된 자기 행위>가 또 ‘생활’로 돌아간다.
14. 하나님은 그때마다 섭리 계시를 못 받으면 그 자리를 맴돌게 하신다.
15. 철근과 콘크리트와 나무로 집을 짓듯이, 오직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다. 성령은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짓도록 <감동>을 주신다.
16.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17. <뜻을 거둘 때>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고 ‘선지자’도 끊으셨다.
18. <말씀>을 끊으면 ‘양식’을 끊은 것과 같아서 ‘만사의 모든 일’이 다 끝난다.
19. 끊임없이 <말씀의 양식>을 줘도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이것도 ‘말씀이 끊어진 것’과 같다. 이것이 계속되면 ‘뜻’도 끊어진다. 고로 기도해라!
20. <말씀>과 <기도>는 ‘신앙의 기본’이며 ‘신앙의 중심’이다.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안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중심’이 흔들리고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없다.
21. <말씀>과 <기도>는 ‘사탄과 악과 불의와 육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법’이다.

<2016년 9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22. 하나님을 신으로 삼지 말아라.
23. 특별한 자만 챙기지 말아라.
24. 이는 지도자들이 할 일로서 ‘하나님과 주의 법’이다.
25. <전체>를 공의롭게 대하고 행해라.
26. <어떤 특별한 자>만 신을 섬기듯 대하지 말고 <전체>를 공의롭게 대하면서 행하면, <전체>가 사랑받고 행하니 수 백 배 잘된다.
27. <수백 개의 지체 중>에서 ‘한 지체’만 관리하고 사랑하고 신같이 대한다고 해서 <온몸의 건강>이 좋아질 수 없다. <온몸>이 건강하려면, ‘수백 개의 지체 모두’를 공의롭게 사랑하며 살피야 된다. <신앙>도 이렇게 하고, <생명 관리>도 이렇게 해라.
28. 온 지체를 살피듯 섭리세계, 각 나라, 각 교회, 각 개인을 골고루 사랑하고 살피야 ‘부흥’된다.

29. 한 사람을 아무리 신같이 섬겨도, 그 <한 사람>이 전도하면 ‘몇십 명’이다. 전체를 공의롭게 대해 주어 <전체>가 전도하면 ‘수백 명’은 전도한다.
30. <한 지체>로는 평생 ‘한 지체가 할 일’만 한다. <온 지체>를 다 쓰면서 살아야 ‘수백 가지 일’을 한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31.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했으니, 올해와 내년까지 이와 같이 하면 ‘만 명’은 전도한다.
32. <방법>을 달리하면, ‘다른 세상의 역사’가 일어난다.
33. <하나님의 수리적인 역사>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때’를 벗어난 것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리하게 ‘수리적’으로 행하신다.
34. 일주일을 아프다가 낫고 모든 말씀을 받고 나니, <6>수가 ‘세 번’이나 있는 날이었다. 바로 <2016년 6월 16일>이었다. 이날은 올해 한 번뿐이다. 이날 아픈 것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섭리사의 새로운 운영 방향’을 주셨다. 하나님은 ‘수’를 창조하시고, <끝날 때>는 ‘끝나는 수’에 따라서 행하시고,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수’에 따라 행하셨다.
35.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라면, 너도 공의롭게 행해라.
36.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대하고, <공의>로 말해라. <공의>를 벗어나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그로 인해 ‘생명 손실’까지 일어나서 ‘원수, 대적자’가 되어 근심거리가 된다.
37. 한 번 ‘적’이 되면, ‘영원한 적’이다.
38. <썩은 과일>은 ‘원상 복구’가 없듯이, <한 번 완전히 사망권으로 간 자>는 ‘복직’이 없다. ‘행여나...’ 하고 ‘그 영’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39. 하나를 신으로 삼지 않고 생각과 행위를 돌려 버리니, ‘그동안 기도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선연히 보였다. 그 사람은 ‘이전에 나간 사람을 대신해서 온 자’다. 그 사람이 ‘그 위치’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에 즉시 바로 이야기해 주고 사명을 주니, 물고기가 ‘어항’에 있다가 ‘연못’에 사는 격이 되었다.
40.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귀한 하늘 신부들의 운명’도 좌우시키고, ‘이때 섭리사 전체의 운명’도 좌우시킨다.
41. 하나님은 <한마디>로 굳혀서 말씀하신다. “따먹지 말아라.”,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며 <한마디>로 끝낸다. <그 한마디 말씀>을 행하면 ‘수백, 수천 건’이 다 형통한다.
42. 아담과 하와도 “따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지켰으면, 그 조건으로 ‘수천 건’이 잘됐을 것이다.
43.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A 하나’를 처리하면, ‘B라는 문제’가 연이어 온다. <A>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는 ‘건너편의 것’이다. -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마치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배설물’을 버리니, <화장실>이 막힌 격이다. - 이런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고로 담대히 해라.
44. <문제>가 없으면 ‘차원’도 못 높이고 ‘발전’도 없다. <문제> 속에서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 ‘더 좋은 역사’가 온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해결사’가 되어라.

1. <한 글자>를 써도 - 잘 쓰려고 정신 차리고 한 획씩 확인하면서 쓰지 않으면 제대로 못 쓰고, 후에 문제가 생긴다.
2. 매사에 생활하면서, 정신 차리고 확인하면서 조심히 행해라.
3.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것은 좋으나,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행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4.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더우니까 '어떤 집의 담장 그늘 밑'을 왔다 갔다 했다. 그때 그 집 주인이 설치해 놓은 CCTV를 보고 '도둑'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서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았다. 하루 종일 다른 일도 못 하고 고생하고, 기분이 나쁘니 더 열을 받았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무작정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조심히 행해라.
5. 매일 상대가 <자기 행위>를 CCTV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6. 생각을 집중하면서 행해도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상대의 입장>도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7. <자기 일>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봐야 된다.
8.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마음 놓고 살 세상이 못 된다. 고로 하나님은 "근신해라. 정신 차리고 해라. 확인하면서 해라. 세밀히 보면서 해라. 자기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보면서 해라." 하고 <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9. <천국>은 '자기가 거하는 위치와 차원'에서 '자기 세상'같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곳이다.
10. 세상에서는 '완벽'하게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11. 사람이 <글>을 써도 '글씨와 문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쓰지 못한다. 제대로 쓰려면, 정말 신경 쓰고 해야 된다. 기도할 때도, 편지 쓸 때도, 설교할 때도, 운동할 때도, 100만 가지를 해도 어떤 일든 모두 '신경 쓰면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신경을 안 쓰면, 신경을 안 쓴 만큼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온다. 어서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휴거의 영'이 돼야 한다. 그리고 <육>이 '세상'을 벗어났을 때 <영>이 '황금성 천국'으로 가야 된다.
12. 세상의 왕들도, 재벌도, 유명인도, 메시아도, 선지자도, 일반 사람들도 - '생명을 가진 인간'과 '모든 존재물'은 다 그러하다.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걱정과 고민과 번민과 의식주(衣食住)의 염려와 고뇌가 계속 연속된다. -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 없이는 '인간 창조'가 불가능하니, 하나님은 이같이 인생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인간은 '절대신'이 아니니, <평안>을 누려도 '순간'만 누릴 뿐이다. 존재하려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만큼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
13. 방 안의 파리와 모기와 개미는 존재물이 작다. 고로 '사람'같이 걱정하고 번민하고 고뇌하지 않는다. <개미>는 '전쟁과 경제, 현재와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 <사람>이 최고로 많이 걱정하고 고뇌하며 산다. 그만큼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14. <날파리나 개미>는 '인간 같은 고민과 걱정'을 1억만 분의 1도 안 한다. <동물>도 '지능'이 높으면 그만큼 신경 쓰면서 산다. <인간>이 최고로 많이 걱정하고 고뇌하고 신경 쓰면서 산다. <인간>도 '지능'이 낮으면, 걱정·근심·염려를 안 한다.
15. 어린아이들은 어른만큼 걱정·염려·고민을 안 한다.
16. <인간>이 '전능자와 일체' 되어 살 때는 - '걱정·염려·근심·고통'에서 벗어나게 창조해 놓으셨다.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선택해서 자살하듯, 자기가 선택해서 사망의 길을 간다.
2. 주를 믿다가 안 믿으면 ‘사망의 길’이다.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의 지옥 세계’로 간다.
3. 두 길이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행통의 길>이다. 이 두 길은 각각 ‘갈려’ 나간다.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직 <근본>을 안 당했으니 보통으로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 당하면, 그제야 안다.
4.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길의 앞날>을 아주 모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사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부분적’으로 안다. 그러다 <근본>을 당하면, 그제야 ‘확실히’ 안다.
5. <죽음에 속한 병>은 못 고치면 죽는다. 이와 같이 <신앙의 병>도 못 고치면 <영>이 ‘사망’으로 가서 죽고, <육>도 ‘사망권 세계’로 넘어가서 ‘죽은 삶’을 살게 된다.
6. 주를 등지고 섭리사를 나가서 계속해서 서운하다 하고 악평하는 자들은 꼭 ‘섭리사의 생명들’을 끌어낸다. - 이것을 모르거나 알고도 소홀히 하면, 생명들을 뺏기고 실패한다.
7. <택한 자>를 뺏기면,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뺏긴다.
8. <책임>을 못 하면, 뺏긴다. - 생명도, 경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도, 영적인 것들도, 휴거도 그러하다.
9. 북한을 보아라. 한 번 ‘사상’이 변하니, 평생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죽기 전까지는 평생 그러한다.
10. <사탄>이 ‘생명을 끌어가는 것’을 쉬겠느냐. <인(人)사탄>도 그러하다. 고로 책임을 해라. 근신해라. 긴장해라. 기도해라. 삼위와 교통하고 대화해라. 진리로 무장해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11. <주의 말>을 생명시하지 않으면, ‘평생 적이 되어 싸우는 고통’이 따른다.
12.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다. 고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었다. <사상> 때문에 나뉜 것이다. <북한>이 없어질 때까지 ‘전쟁과 싸움’이 쉬지 않는다. 고로 ‘군사들’을 배치하여 ‘국방’을 지킨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도 <사상>이 달라 나간 자들이 있다. 그리고 악평하며 생명들을 끌어낸다. 어떤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없고, 어떤 교회에는 있다. <나가서 생명을 끌어내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에 ‘적’이 생긴 것이다. 고로 남북한이 갈리듯 갈리게 되었다. 이런 교회는 ‘군사들’을 만들어서 ‘국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생결단하고 기도해라.
13. 섭리사의 국방, 자기 민족의 국방, 교회의 국방, 자기 가정의 국방, 자기의 영적 국방을 놓고 절대 기도해야 된다.
14. <기도해라> 함은 - ‘기도의 불’을 불임으로 ‘다른 것들’도 불을 붙여서 하라 함이다.
15. <기도>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일>을 꼭 해야 기도가 이루어진다.

<2016년 9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운>은 ‘행함’으로 온다.
2. <자기에게 오는 운>도 행하지 않으면, 다른 자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게 된다.

3. <운에 대한 꿈의 현상>을 보았다. 주가 어떤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주를 따르지 않았다. 고로 다른 자로 인해 문제가 생겨서 '자기에게 오는 운'을 그것에 다 쓰게 됐다. 그 사람이 주의 말을 듣고 왔다면 문제가 안 생겨서 '운'이 그에게 갔을 것이다. <운>은 '복'인데, <자기가 행할 것>을 주 앞에서 '행해야' 얻게 된다.
4. <운>은 '자기가 행할 것을 행함'으로 온다.
5. <자기에게 오는 운>이라도 그냥은 안 온다. <행할 일>을 행해야 온다.
6. 새벽 1시 기도를 하려고 조금 일찍 자고, 밤 12시에 깼다. 그때 선연히 '스쳐 지나갔던 꿈'을 생각했다. 나와 겨루는 자와 4km 뛰기를 했는데, 내가 이겼다. 누워서 꿈속에서 뛰었던 코스를 생각하다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나와 뛰어서 진 자>가 '상'을 받고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이때 잠에서 깨 보니 '새벽 3시'였다. 12시에 일어난 것은 '시간적으로 이긴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또 자니 <행하지 않음>으로 '상황이 뒤바뀐 것'을 보여 준 것이었다. <육의 상황>을 '꿈'으로 보여 준 것이다. <실제로 행한 자>는 꿈에 이긴 것이 안 보여도 '이긴 자'다. <꿈에 이긴 자>라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패한 자'다.
7. <못 한 시간>은 '패한 시간'이고, <행한 시간>은 '이긴 시간'이다.
8. 새벽 1시 기도를 하려고 밤 12시에 눈을 떴을 때는 <내 총>에 '여섯 발의 총알'이 들어 있었다. - '시간도 무기다. 총알이다.' 함을 계시하여 보여 주신 것이다.
9. <총알>은 '시간'이고, <총>은 '행하는 일'이다.
10. <시간>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자>는 '총알'은 있는데 '총'은 없는 자와 같다.
11. 항상 '총과 총알'이 다 있어야 된다.
12. <시간 한 가지만 있는 자>도 있고, <시간>과 <그 시간을 가지고 행할 일>까지 '두 가지가 있어 다 하는 자'도 있고, 아예 <두 가지 다 없는 자>도 있다.
13. 시간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 같아도 <준비한 자>에게만 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 고로 시간이 없는 것과 같다.
14. 꿈에 <훈>이 열심히 해도 실제로 <육>이 안 하면 '육'은 못 얻고, 꿈속에서 '훈'만 얻고 끝난다.
15.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 <마음과 생각>으로만 열심히 하고 <육>이 안 하면 <마음과 생각>으로만 기뻐하며 얻고, <육신>은 실제로 못 얻는 격이다.
16. <좋은 꿈>을 꾀도 <육>이 행하지 않으면, '꿈'으로 끝난다. <육>이 행해야 꿈과 같이 얻게 된다.
17. <생각하면> '마음'으로 누리고, <행하면> '육'으로 누린다.
18. <행함>으로 '운'이 바뀐다.
19.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20. <행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자>는 결국 '불행한 자'가 된다.
21. <행하는 자>는 '자기라는 기계가 좋은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라는 기계가 고장 난 자'다.

22. 행해 버릇해라. 안 해 버릇하다가는 그 단계에서 떨어져서 ‘행할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된다.

23. <행하기를 잘하는 자>만 ‘행할 일’이 생각난다.

24. <행한 자>는 얻고, ‘행한 것으로 인해 성공의 비법과 교훈’도 얻는다.

25. <행하지 않은 자>는 못 얻고, 얻는 것이 있다면 ‘못 한 것에 대한 교훈’만 얻는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다.

2. (사람과 만물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니, 이때 들린 하나님 음성) <아름다운 모습>은 모두 ‘내 모습’이니라.

3. 크면 - ‘아름다운 것’도 생기고 ‘신비한 것’도 생기고 ‘웅장한 것’도 생겨서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그러니 어서 신앙도, 육신도, 생각도, 혼도, 영도 키워라. <크는 것>이 그리도 크다.

4. 이렇게 생겼든지 저렇게 생겼든지 ‘나의 작품’으로 만들었으니,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두 귀히 보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고 써라.

5. 항상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6. <성약역사>도 ‘이 시대 성약역사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7. <이 시대>는 ‘시대 주인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8. <모든 만물과 인간과 시대>는 ‘삼위일체 쪽’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9. 아무리 잘 만들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고, 귀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었어도 ‘보는 자’가 모르고 보고, ‘쓰는 자’가 모르고 쓰면, 그만큼 <만든 자>도 보람이 없고, <보고 쓰는 자>도 그만큼 유익도, 기쁨도, 흥분도, 극치의 오묘함도 없다.

10. ‘상-중-하’다. <머리>는 ‘상’, <몸>은 ‘중’, <사랑의 지체>는 ‘하’다. 고로 <몸을 뺀 자>는 <머리를 뺀 자>에게 뺏긴다.

11. 그러나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그때마다 ‘행하는 것’도 그에 합당하게 바뀐다. 어느 때는 <핵 공격>, 어느 때는 <머리 공격> 하면서 겨뤄야 된다.

12. <육체>는 <영체>보다 아름다움도, 신비함도, 웅장함도 감소시켜서 창조하셨다. <육적인 것들>도 <영적인 것들> 앞에 그렇게 창조하셨다.

13. 잘못 생각하면, ‘거미줄같이 하찮은 것’에 목이 걸려 죽게 된다. 곧 이성과 동성, 자기를 중심한 것들, 세상 육에 속한 것들이다.

14. <하나님의 주권권 밖>은 ‘딴 세상’이다.

15. 물론 <전체>가 ‘하나님 세상’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권 세상’이 있다.

16.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면 ‘탄 세상’이므로 ‘다른 주권, 다른 법, 다른 대함, 다른 다스림’을 받게 된다.
17.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신부’로 대함을 받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라. 이것이 영원하고 최고로 값진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2016년 9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한 것도 <혼과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2. <사진>은 생명력이 없다. ‘해당되는 사람의 실물’이 생각나게는 하지만, ‘현실감’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3. <동상>은 ‘사진’보다는 더 실감 나지만, 그 역시 생명력이 없다. 다만 ‘실제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고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육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자>를 실감 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혼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4. (정말 큰 성령의 계시) 더 쉽게 보는 방법이 있으니 - 삼위일체든, 주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와 일체 되어 그의 생각을 자기 몸으로 행하면서 자기 몸을 통해 보는 것>이다. 그 방법이 더 쉽고, 더 크고, 더 와 닿는다.
5. <자기가 목적인 바>를 이루고 <그 차원>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연구하다가 깨달았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 차원>에서 최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신다.
7. <자기 스스로 목적인 바>를 이루고 사는 자가 있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을 이루고 사는 자도 있다. 이런 자가 ‘최고의 것’을 이루고 ‘기쁨의 세계’에서 산다.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크고 위대하고 진실로 행복한 자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최고 목적>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다. 삼위일체도 ‘목적’을 이루시면 최고로 기뻐하신다.
9. <삼위일체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체로 삼는 것’이다. 그다음 목적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뜨겁게 사랑하며, 그 차원에서 사랑이 변함없이 사는 것’이다.
10. 서로 생각과 행위가 맞아 한 몸 되어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신부의 신앙’이다.
11. 사람들은 <육>에만 ‘목적’을 두고 사니,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육신>만 만족하고 <영과 혼과 마음>은 곤고하다.
12. <육신>이 있으니 ‘육의 목적’도 이뤄야 만족하고 기쁘지만, 인간에게는 누구나 <혼과 영>이 존재하니 ‘영원한 목적’도 이뤄야 영원한 것을 두고 사니 내적 기쁨이 충만하다.
13. <육>이 세상에서 살 때 ‘육의 목적’도 이루며 살고, ‘영의 목적’도 이루고 살아야 가장 이상적으로 값있게 살게 된다.
14. <인간의 육의 목적>은 성장하면서 ‘더 차원 높은 목적’을 (따라/ 이루고) 얻으면서 살아야 기쁘다.
15. <지금도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그 뇌와 생각에 ‘목적’을 위한 것’이 꽉 차서 걱정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룬 자들>을 보아라. 목적을 이뤘으니 천만다행이지 않느냐. 목적을 이뤘으니 현실이 이러하지, 만일 못 이뤘으면 현실이 어떠하겠느냐. 그 목적을 이루려고 고생하고 애를 태우고 몸부림치며 있지 않겠느냐.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행할 때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를 생각하고, ‘이룬 것’을 가지고 매일 뜨거운 물이 끓듯 해야 된다. 정

신과 생각을 몰두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목적을 이룬 자>와 <못 이룬 자>는 삶도, 생활도, 생각도 다르다.

16. <목적>을 이뤘다면 ‘이룬 것’을 귀히 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며 그 차원에서 매일 뜨겁게 행하면서 살아라.

17.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얼마나 애태우고 몸부림쳤느냐. ‘자기 것’으로 삼았으면, 이제는 귀히 여기고 100배, 1000배 써야 된다.

18. <주>를 만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가 와서 <주>를 만났는데, 순간 열심히 하다가 열이 식어서 다시 자기중심,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 삼위일체와 주의 무한한 역사가 있는데, 자기가 ‘보통’으로 하니 오히려 보람도 없고 실감도 못 하고, ‘주를 만나려고 애태우며 희망으로 살던 때’만도 못하게 살게 되는 것이다.

19. <목적>이 이루어졌어도 ‘이룬 것’을 가지고 위대하게 쓰면서 삼위일체와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0. 위대하고 최고로 가치 있게 살려면, ‘절대자 삼위일체’와 매일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느끼고, 못 받고, 안 된다.

21. <목적지>에 가야 ‘천하에 둘도 없는 극치의 비경’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하듯이, 저마다 <목적>을 이뤄야 기뻐하고 만족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고도 ‘식은 음식’같이 되어 그 삶을 맛있고 뜨겁게 느끼지 못하고, ‘목적’을 이뤘다는 자랑만 하면서 살아간다. 정말 안타깝다.

22. <육적 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인간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최고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이뤄야 ‘더 이상 없는 목적’을 이룬 자가 된다.

23. <육신을 위한 목적>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성장한 차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목적을 이뤘어도 ‘그때 한때’만 기쁘고 만족하다. <때>가 지나면 ‘더 이상적인 것들’이 세상이 있으니, 또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육의 것들>은 한때가 지나면 해가 지듯 사라진다.

24. <목적>을 이뤄 놓고도 ‘가치’를 모르고 ‘마음과 행실’이 식어서 사니, 곤고하게 되는 것이다.

25. <목적>을 이뤘으면 이룬 것을 연속해서 쓰면서 그 목적에서 더 빛나게 행해라. 그래야 그것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무한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26. 절대자 삼위일체와 교통하고, 매일 이룬 목적을 빛나게 쓰면서 사는 사랑의 삶이다.

<2016년 9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27. 사진이나 동상은 생명력이 없다. 다만 ‘실체를 기억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28. 사진이나 동상을 보는 차원을 벗어나서 ‘생명력 있는 실체’를 보면서 살아라. 그러면 생명력 있게 뛰고 실감한다.

29. (진정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귀한 잠언) <사진이나 동상을 보고 실체를 느끼면서 사는 것>과 <실체를 만나 같이 사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크겠느냐. 삼위일체와 주도 ‘실체’를 만나서 같이 살면, 얼마나 생명력 있고 실감 나겠느냐. <자기가 삼위와 주의 몸이 되어 그 생각을 실천>해라. 그러면 <자기>를 본 것이 곧 <삼위와 주>를 본 것과 같다.

30. (진정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귀한 잠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실제 육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곧 자기가 삼위가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리고, 삼위가 자기를 쓰고 행하시도록 그 생각과 일체 되어라. 이것이 <자기 몸>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실감 나게 보는 것이다.

31.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정, 마음, 생각’과 일체 되어 ‘그의 몸’이 되어 행하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보아라.” 하셨다.
32. 인간들은 모두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태어났다. 고로 ‘그 심정, 생각, 말씀’을 가지고 행하면, <자기 몸>을 보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육으로 보는 것>과 같다.
33. 삼위와 주를 느끼면서 대화하면, <자기 생각>이 ‘삼위와 주와 일체’ 된다. 그때 ‘자기 뇌와 생각’으로 통하게 된다. 이것이 ‘자기 눈으로 실체 삼위와 주를 보는 것’과 같고, ‘자기 몸으로 실체 삼위와 주를 만나는 것’과 같다.
34. <성령님>을 ‘자기 육’을 통해 보려면, ‘성령님의 마음, 생각, 행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여라. 이것이 ‘자기 육을 통해 성령님을 보는 것’이다.
35. ‘얼마나 깊이, 높이, 강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희망도, 행하는 것도 좌우된다.
36. 뇌신경을 안 쓰면 둔해져서 마치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강도 약한 리모컨’과 같이 된다. 고로 작동이 잘 안 된다. <생각의 강도, 마음의 강도, 정신의 강도>에 따라서 더 강하게 느끼고, 더 차원 높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힘으로 몸도 행하게 된다.
37. 생각을 강하게 집중하면서 강하게 행해야 - 거기에 대해 강하게 느끼게 된다.
38. 생각도 몸도 ‘밀착’해야 더 잘 느낀다. 항상 삼위일체와 주와 가까이하여라. 생각도 행실도 ‘밀착’시켜라. 가까워야 일체 된다.
39. 일도 가까이 해야 그 일을 느끼고 알게 된다. 고로 제대로 행하게 된다.
40. 신과도, 사람과도 멀면 -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 향기도 안 난다.
41. 생각도 몸도 가까이해야 - 보이고, 들리고, 그 심정이 전해져 와서 ‘가까이 있는 불’같이 느껴진다.
42. (성령) 섭리역사는 <삼위와 인류가 바라던 최고의 목적>을 이루었기에 ‘인생 삶의 기온이 영하 10도, 15도, 20도인 강추위’에서도 ‘따뜻한 섭리사 방’에서 삼위를 모시고 사는 것이다. 만일 그 <목적>을 못 이뤘다면, 지금도 ‘눈보라 휘날리는 가혹한 벌판’에서 목적을 이루려고 심정 태우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룬 것’을 가지고 정말 잘하자.
43. <몸부림의 과정>을 통해 <목적>을 이뤘으니, ‘제2의 역사의 시작’이다.
44. 목적을 이뤘어도 매일 ‘그 날의 할 것’을 안 하면, ‘그 날의 새로운 것’을 못 보고 못 느끼고 ‘그 날의 해’를 넘긴다.
45. 사람도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싫어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러하심을 진정 알아라.
46.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자기 뜻대로 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해 줘야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고 기쁜 것이다.
47.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기다리는 기성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다. 이제 ‘기다리는 자’를 맞았으니, 그와 일체 되고 삼위와 일체 되어 사는 ‘같이 사는 신앙, 삶의 신앙, 생활 신앙’을 해야 된다.

<2016년 9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48. <느낌>으로 아는 것이다.

49. <느낌>은 ‘생각’이다.
50. <느낌>은 ‘실체’다. 실체가 있기에 느끼는 것이다.
51. 차갑고 뜨거운 것이 눈에 안 보여도 ‘느낌’으로 안다.
52. 냉기와 열기가 눈에 안 보여도 몸에 느꼈으면 ‘실체’를 본 것이다. 실제로 찬 공기나 더운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느꼈으면, <실체>가 있는 것이다.
53. <생각>으로도 느끼고 <몸>으로도 느낀다.
54. <성령님>을 뜨거운 감동으로 느꼈다면, 마치 더운 공기가 몸에 닿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몸에 닿은 것’이다. <성령의 생각>이 닿았든지, 성령이 옆에 오셔서 그 <임재>를 느낀 것이다.
55. 달리기를 하든지 각종 운동을 하면 덥고 열이 난다. 불 옆에 있으면 뜨겁다고 느낀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따뜻함을 느낀다. 이와 같이 삼위와 주도 감동을 주고 터치해 주니, 느끼게 된다. 그때 바로 삼위와 주께 말해라.
56. <육신>은 물체나 사물이나 사람이 몸에 닿아야 느끼지만, <생각>은 느낌으로 안다. 느낄 때, 닿은 것이다.
57. 혼체가 상대체와 닿았을 때 육이 혼과 일체 되어 있다면, ‘혼의 몸에 닿은 것’이 ‘육신’에게 전해져서 그대로 느껴진다.
58. 생활 중에 각종 냄새를 맡듯이, 생활하다가 ‘자기 생각, 마음, 신경, 혼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다. 이때 <실체>가 안 보여도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실체>가 있기에 느낀 것이다.
59. 실체가 안 보이는데 ‘그것의 냄새’가 난다 하자. 그렇다면 ‘그 존재물의 실상’이 있는 것이다. <느낌>도 그러하다.
60. 음식 냄새나 각종 냄새가 나면, 공기를 통해 ‘후각’으로 맡게 된다. - 이것이 ‘몸에 닿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삼위와 주의 생각과 역사하심>도 ‘자기 생각’에 닿아 느껴지고, ‘감동’에 닿아 느껴지고, ‘영파’에 닿아 느껴진다.
61. 각종 존재가 안 보여도 ‘그 존재의 에너지’가 <자기 뇌와 생각>에 전달되어 느껴지는 것이다. 안 보여도 ‘실체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때 즉시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62. 생각을 집중하면, 멀리 있는 실체도 느낀다.
63. 혼체가 가서 직접 접하고 오면 ‘지구 세상, 우주 세상, 영의 세계’까지 보고 와서 말한다. 그러나 <자기 기본 주관권의 것>밖에 못 본다. <절대자 주관권의 것>은 오직 ‘삼위가 허락’하셔야 볼 수 있다.

<2016년 9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기도해라. 확실하게 하여라.
2. 꿈에 어린아이가 자기를 따라다니며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방해할 때가 있다. ‘하나의 사탄’이다. <사탄>이 ‘어린아이’로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를 돕게 하면서 시간을 빼앗아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한다.
3. 생시에 <작은 일>을 돕다가 <큰일>을 못 하게 될 때가 있다. 이것을 꿈에 보면, ‘누가 나타나서 그가 하는 일을 돕다가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할 일을 못 하게 방해하고 유혹하기도 한다.

4. 그러나 <꿈에 보이는 어린아이>가 꼭 ‘사탄’인 것은 아니다. 어느 때는 ‘어린 생명’을 도우라 함이다.

5. 선생이 꿈에 헬리콥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팔꿈치로 내 옆구리를 콕콕 찔렀다. 너무 아프게 찔러서 눈여겨봤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내게 해를 주면서, 헬기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했다. 헬기는 어느 한 장소로 가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 나도 내려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탄 데로 갔다. 걱정되어 따라가서 끌고 오니, 헬기는 이미 떠서 20m쯤 날아가고 있었다. 어린아이 때문에 나도 헬기를 못 타고 말았다. 사탄이 ‘어린아이’로 나타나 나를 유인했던 것이다. 혼자서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어린아이가 없어지고, 나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가다 보니 길옆에 아까 그 헬기가 있었고, 조종사가 타라고 하여 앞자리에 탔다. 둘만 헬기를 타고 떠났다. 어린아이가 없으니 다시 헬기를 타게 된 것이다. <꿈에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행한 것>은 ‘작은 일’을 신경 쓰게 하면서 ‘큰일’을 못 하게 방해한다는 계시다. <사탄>이 ‘어린아이’로 가장하여 나타나, 보기에 안쓰러우니 그 어린아이를 돕게 하다가 ‘다른 일’을 못 하게 하는 방해 작전이었다. 꿈에서 헬기를 타고 갈 때도 어린아이가 자꾸 나를 옆으로 떠밀어서, 아이의 편의를 봐주려고 내가 난간 쪽에 앉게 된 것이다. 위험했다. <사탄>이 ‘어린아이로 나타나 행하게 하면서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이같이 생시에도 ‘작은 일에 신경 쓰게 하면서 큰일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행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 이제 꿈에서도 <사탄의 작전>을 알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린아이로 가장한 사탄’을 집어 던진다.

6. 꿈에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만나려고 하면, ‘아기’가 나타나서 도와달라고 한다. 그 아기를 챙기다가 ‘사랑하는 자’를 못 만난다. 이는 <사탄>이 ‘삼위와 주를 만나는 것’을 방해한다는 계시다. 알고 행해라.

7. 생시에도 사탄은 <하찮은 일>을 신경 쓰게 하면서 <큰일>을 못 하게 한다. 사탄의 작전이다. 이것을 알고 행해라.

8. 세상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도 이 작전으로 속인다. 거리에 ‘구걸하는 자들’을 데려다 배치해 놓고, 행인들이 볼 때 불쌍하니 도와주게 한다. 그러다 밤에 악한 자들이 와서 ‘구걸하여 받은 돈’을 다 뺏고, 또 거리에 ‘구걸하는 자들’을 배치한다. 이것을 아는 자는 도와주지 않는다. 단속자는 불법한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다. 사탄도 이런 작전으로 행한다. 알고 행해라.

9. 악한 자들은 ‘어린 생명’을 보내어 사랑으로 돕게 만들고 이용한다.

10. 신경 쓰고 안 보면, 평생 속는다.

11. 지혜의 하나님과 일체 되어라. 깨어 근신하여라. 신경 쓰고 보아라. 사탄과 불법한 자들의 행함과 속임수를 알고 분별하고 행해라.

12. <머리>가 깨닫고 <지체>에게 알려 주니, 듣고 행하여라.

<2016년 9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표현>을 잘해야 된다.

2. <소리>를 잘 내야 된다.

3. 노래를 지을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설교할 때도, 각종으로 말할 때도, 글을 쓸 때도 <표현>을 잘해야 된다. (‘좋은 노래나 나쁜 노래나 우리는 하나다.’ 노래 이후, 또 새로운 노래 지을 때)

4. 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성령께서 ‘다른 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5. 작은 것도 자기가 착오를 일으킬 때는 성령께서 ‘아는 자’를 통해 행하며 도우신다.

6. 죽은 자를 마음 아프게 하고 보내면, 산 자는 마음을 풀 수가 없다. 고로 끝까지 잘하여라.

7. <세상 사랑> 때문에 '구원'도 '휴거'도 버리고 떠난다.
8. 이는 <한 끼> 잘 먹고서 <평생> 굶주리고 창자까지 마른 채 살아가는 지옥 길이다.
9.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구상>이다. <만들기>다.
10. 온전하게 <위치 선정>을 잘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구상>을 완벽하게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만든 것>이 있으니, -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과 '남자와 여자'다. 인간의 지체를 보아라. 온전히 <제 위치>에 완벽하게 <구상>하여 만들었다. 항상 이를 보면서 행하여라.
11.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냐.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만 '답'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능이 낮아서 몰라준다.
12. <당세>에 '하나님의 1000년 역사'를 시작한 것이니, 이만하면 큰 것이다.
13. <당세>는 '시작하는 기간'이다.
14. 사람에게 '평생 기쁨 일'이 있다. 이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다. <이것을 얻고 사는 자>만 무엇인지 안다.
15.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구원'을 이루며 사는 길이다.
16. <평생 기쁘게 살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기술'이 없으면, 기쁘게 살지 못한다.
17. 세상 명예, 보화, 재물, 환경으로는 평생 기쁨과 희락을 누리지 못한다.
18. <절대자 삼위일체>와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영도 육도 구원해 놔야' 사망의 고통을 벗어나 삼위일체와 주의 사랑을 받고 기쁘게 살게 된다.
19.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그 시대에 명한 것>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절대 인간의 육에게도 영에게도 '이상세계'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20.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 나라'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적 세상'이다. 고로 <절대적인 차원>은 '절대적으로 행해야' 허락하신다.
21. 재물도, 세상 사랑도, 명예도 버리고 <삼위일체>와 <그가 보낸 구원자>를 따라야 평생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영원히 누리며 기쁘게 살 수 있다.

<2016년 9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그것이 '삼위일체가 계속 도와주는 것'이다.
2. 어린아이가 늘 잡아 달라고 하면 잡아 주지만, 잡아 줬다가 놓으면 또 가다가 넘어진다. 엄마의 말을 듣고 '안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자기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엄마가 늘 잡아 주는 것'과 같다.
3. 신앙의 삶도 늘 삼위와 주께 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삼위와 주가 잡아 주고 도와주는 완전한 방법'이다. 고로 자기가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서고 뛰는 법'을 배우고 행해야 된다.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잡아 주고 도와주느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로 스스로

행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4. 하나님께 ‘자기 몸’을 쓰고 해 달라고 간구하여, 하나님이 ‘그 몸’을 쓰고 해 주셔도 <하나님의 실력>을 다 나타낼 수 없다.

5.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쓰고 해 주셔도 <그 사람의 차원 이상>은 역사하지 못한다. <힘센 장수>가 ‘어린이’를 쓰고 행하면, 그 힘을 어린이에게 다 나타낼 수 있겠느냐. <어린이 차원만큼>만 나타낸다. 하나님도 이와 같다.

6. 어서 커서 어른이 돼야 그만큼 힘이 나온다. 매일 성장하면서 ‘힘 쓰는 기술’을 배우며,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표가 나게 다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같이 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배우고 익히고 행하면서, 그 터전 위에 ‘삼위일체가 함께하기를’ 원해야 된다.

8. 조명을 더 밝게 해 달라고 해도 ‘전구의 와트(W)’가 낮으면, 더 밝게 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능력만큼 함께하고 잡아 주고 도우셔도 ‘인간의 지식, 기술, 생각, 지능, 차원’이 낮으면, 그 이상의 힘을 나타낼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우셔도 <인간의 지식, 기술, 생각, 지능 차원만큼>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

9. <자기 성장, 자기 기술 향상, 자기 개발>을 ‘매일’ 해야 된다.

10. <그 사람의 차원>대로만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이시다.

11. <그릇 크기만큼>만 담을 수 있다. 고로 많이 받으려면, ‘마음의 그릇, 행실의 그릇, 차원의 그릇’을 키워라.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일을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해야 되니 시간이 배나 더 들어간다.

2. 글도 <쓸 때> 제대로 써야 교정할 때 순간 교정한다.

3. 말도 <할 때> 아예 할 말을 해야 시간이 절약되고 생각이 나서 하게 된다.

4. 무엇이든지 <할 때> 해라.

5. <할 때>, 집중된다.

6. 그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난다.

7. 가령 삼위일체를 부르며 사랑할 때도 <할 때> ‘100% 사랑’해야지, 99% 사랑하고 ‘1%’ 빠트리고, 나중에 ‘빠진 것’ 사랑한다고 다시 삼위일체를 부르면 되겠느냐. <할 때> 100% 해야 된다.

8. 붓글씨도 <쓸 때> 제대로 써야 된다. 그 글자를 쓰면서 길게 그어 내릴 때 못 그어 내리고, 다 쓰고 나서 또 다시 그어 내리면 ‘덧칠’을 하게 된다. 고로 글씨에 ‘턱’이 생겨서 표가 나고, 그러니 ‘작품’이 안 된다.

9. 사랑도 <할 때> 100% 해라.

10. 주는 것도 <줄 때> 주고, 받는 것도 <줄 때> 받아라.

11. 만물의 이치는 동일하다.

12. <청소할 때> 아예 깨끗이 해 버려라. <버릴 때> 아예 깨끗이 버려라. <할 때> 100% 안 하고, 나중에 ‘쓰레기 한 봉지’ 남았으니 가지고 가라고 전화해서 쓰레기차를 부르면 <때> 지나서 오지 않고, 오히려 상식 없다고 책망받는다.
13. 기도도, 찬양도, 관리도, 전도도, 강의도 <할 때> 해라.
14. 가령 두 시간 동안 강의하고 보낸 후에 ‘핵 몇 줄’이 빠졌으니 다시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
15. <음식을 입에 넣었을 때> 깨물고 씹어야지, 넘겨 놓고 몇 번 더 깨물었어야 된다고 다시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느냐. 이와 같이 <할 때> 해라.
16. <할 때> 100% 해라.
17. 의사가 수술하려고 배를 갈라서 벌려 놓았을 때 잘라 낼 것을 다 잘라 내야지, 배를 꿰매 놓고 남은 것을 더 잘라 내야 된다고 배를 또 가르면 되겠느냐. 그러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 신앙의 모든 일도 그러하니 <할 때> 해라.
18. 화장도 <할 때> 해야지, 조금 남기고 후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다가 하겠느냐. 아니면 다시 집에 와서 못다 한 것 하고 가겠느냐.
19. 옷 만드는 회사에서 옷을 일부만 만들다가 팔고, 그 옷을 입고 다니는데 못 만든 것을 마저 해 준다고 벗으라고 하면 거리에서 벗겠느냐.
20. 병도 <치료할 때> 다 치료해라. 못 하면 1% 남은 것도 재발되어 억울하게 죽는다.
21. 목욕탕 가서 때를 <밀 때> 다 밀고 와야지, 급하다고 80% 밀고 다른 일 보고 나서, 20% 남은 것을 다시 밀러 가겠느냐. 돈도, 시간도 배로 더 든다.
22. 10대 때 할 것인데 <할 때> 안 하고, 지금 그 일이 해지느냐.
23. 과거에 ‘할 때 못 한 것들’을 보아라. 그 일이 지금 해지느냐.
24. <할 때> 해라. - 삼위일체의 특별 계시다.
25. 회개도 <할 때> 해라. 어떤 자는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두고두고 회개하며 계속 회개 편지를 보낸다. 그러나 삶이 곱곱하다. 될 일도 안 된다.
26. 편지도 <쓸 때> 할 말을 써야지, 보낸 후에 ‘빠진 것’만 다시 써서 보내면 편지를 받아도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27. 공사도, 개발도 <할 때> 해라. 자기 계발, 자기 만들기도 그러하다.
28. <할 때> 집중되고 생각나고, 몸도 부드럽게 풀려서 잘된다.
-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29.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생활 속>에서 돌아가야 된다.
30. <기도 시간>에는 기도한 것을 실천하지 못한다. 기도한 것의 실천은 <생활 가운데> 하는 것이다.
31.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생활 속>에서 기도한 것을 잊으면, 기도한 것을 행하지 못하여 못 얻는다.

32. 기도할 때, 말씀을 받으면서 글씨를 잘 쓰겠다고 했다. (그래야 그 원고를 받아서 정리하는 조은이가 보다 잘 알아보고 몸부림도 덜 치게 된다.) 글씨를 잘 쓰겠다고 기도했으니, 꼭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잠언은 글씨를 정말 잘 쓰고 있다.)
33. 정신을 차려야 제대로 생각하듯이, 손도 정신 차리고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글씨가 막 써진다.
34. <몸>도 ‘보이는 마음·정신·생각’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듯이, <몸>도 정신 차리듯 해야 된다.
35. <생각>으로 ‘손이 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하여라.
36. <손 정신> 안 차리고 하면, 바늘로 찌르고 이로 물어라. 그러면 잘한다.
37. <자기 정신이 흐리멍덩할 때>는 손으로 때려라. 그러면 머리가 자극 받고 잘한다.
38. <뇌가 졸릴 때> 손으로 머리를 때리면, 그 상태를 벗어난다.
39. 맞는 것을 무서워하면, 손톱으로 머리에 침을 놔 줘라. 열 번만 하면 잠이 깬다.
40. 생명을 관리할 때도 신앙이 졸고 있는 무기력한 자들에게 <말씀>으로 ‘자극’을 주면, 신앙의 졸음에서 깨어난다.
41. <생각>을 가만히 놔두니, <지체>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42. 선생은 10대 때 내 몸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 앞산 정상에서 출발하여 극기봉까지 스스로 달렸는데, 반바지를 입고 갔다. 왜냐하면 풀의 썩기가 다리를 전갈같이 쏘니, 정신이 확 차려지기 때문이었다. 썩기가 너무 썩서 오금지에 망울이 생겼고 다리가 부었다. 이같이 스스로 매질을 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렸고, 몸도 게으름에서 벗어났다. 이와 같이 몸과 생각을 고쳐치기에 고생을 덜 하고 살게 되었다.
43. 요즘도 제대로 안 하면, 나 스스로 나에게 대가를 준다. <남>은 ‘나’를 모르니, 못 고쳐 준다. <내>가 ‘나’를 제대로 아니, 내가 스스로 대가를 주며 고쳐 준다.
44.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를 원하신다. 일일이 쫓아다니며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행하기를 원한다.
45. <고칠 때> 힘들어도 아예 고쳐 놓으면 편하고, ‘육’이 제대로 하니 ‘영’도 변화되어 영원토록 유익이 된다.
46.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생각’이 제대로 안 되고, <손>도 흐리멍덩하면 ‘손으로 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된다.
47. <생각>도 ‘신경덩이’다. <신경>으로 느끼면서 하는 것이다.
48. <손>도 ‘신경덩이’와 같다. 고로 <신경>으로 느끼면서 한다. 고로 <손>도 흐리멍덩하면 제대로 안 된다.
49. <머리>도 ‘신경덩이’다. 고로 <신경>으로 느끼면서 한다. <머리의 확대체>가 ‘온 몸’이다. 고로 <온 몸>도 ‘신경덩이’다. 고로 <감각>을 느끼면서 한다.
50. <몸>은 ‘제2의 머리’와 같다.
51. <머리>와 <몸>이 ‘같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52. <주>는 ‘머리’다.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 <둘 다 같이> 정신 차리고 해야 불가능이 없다. <머리인 주>만 정신 차리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

53. 어떤 사람은 <뇌>는 ‘멀쩡’한데 <몸>이 ‘무기력’하다. 고로 훈련하면서 <몸>을 만들어야 된다.

54. 섭리사에서 <머리, 뇌>가 되는 ‘주’는 정신 차리고 한다. 그러나 <지체>가 되는 ‘섭리인들’이 무기력하다. 고로 자신을 훈련하면서 만들도록 <머리>가 지시한다. <지체>도 다 ‘신경’을 가지고 있으니, 해야 된다.

55. 백지에 써 났어도 ‘안 보면’ 기억이 안 나듯이, 뇌에 저장되어 있어도 ‘생각을 안 하면’ 기억이 안 난다.

56. <뇌>도 ‘기록해 놓은 하나의 종이’와 같다. 고로 ‘생각해야’ 기억이 난다.

57. 나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니, 성령님은 “깨우쳐 줬을 때, 바로 해라.” 하셨다.

58. 뇌에서 ‘순간’ 기억한다. 고로 그때 ‘순간’ 행해라.

59. <뇌의 생각>은 ‘눈’과 같다. <볼 때>만 눈에 보이듯이 <생각났을 때>만 생각과 기억이 생생하다. 생각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것같이 기억이 사르르 사라진다.

60. 손이 ‘몸에 닿았을 때’만 순간 느끼다가, 손을 떼면 안 느껴진다. <생각>도 그러하다. ‘생각났을 때’만 순간 기억한다. 고로 생각났을 때, 깨달았을 때 ‘순간’ 행해라.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확인하면 확 안다.

2. 변화해야 변화된다.

3. 잘해야 잘된다.

4. <감동>은 ‘여건’대로 주니, <여건>을 생각해야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5. <생각>으로 ‘감동’을 받으니, <생각>해야 ‘감동’을 받는다.

6.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니, 물어봐라.

7. 자신이 <생각>해야,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신다.

8. <자기가 인식하고 알고 이해한 것>을 통해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9.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계시>도 있고, <하나님과 성령이 주셔서 받는 계시>도 있다.

10. 꿈도 <자기 차원에서 혼이 보고 깨닫는 계시>가 있고, <하나님과 성령이 주셔서 받는 계시>도 있다.

11. <자기 혼이 다니면서 본 곳>을 모두 기록해 보아라. 다 깨달으라는 계시다.

12. 혼도 위험하면 날아다니고, 안전하면 걸어 다닌다.

13. 꿈 계시를 받았어도 ‘생시의 자기 삶’과 연결하여 해석해야 된다. 계시를 받은 <자기>가 풀어야지, <타인>이 풀기

어렵다.

14. <자기 생활과 행실과 연관된 꿈의 계시>는 ‘자기에게 주는 계시’다. 고로 <자기>가 풀어야 더 잘 이해되고 잘 알게 된다.

15. <계시>는 ‘혼자’ 생각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로부터 받는 것이다. 곧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대상’이 되어 받는 것이다.

16. <꿈>은 ‘생시에 자기 생활, 자기 행실’과 연관 지어서 풀어라.

17. <꿈 계시>는 ‘깨우치고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 <자기 생활, 자기 행실>과 연관 지어서 봐야 된다. 고로 <비유를 들어 보여 준> 것이 ‘본 목적의 것’과 달라도 이해해야 된다.

18. <비유한 것>이 ‘본 목적의 것’과 연관 지을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것을 보여 줬을까?’ 하며 의아하게 생각한다. - 그러나 어떤 연관이 있고 무엇이 연결됐는지 보면 알게 된다.

19. 왜 그 비유로 보여 줬는지 깨달아라.

20. <비유한 것>을 자세히 보아라. ‘생김새, 모양, 처지, 의미’를 보고, 그것을 ‘본 실체’와 연관 짓고 연결시켜서 보아라. 어떤 연관이 있고 무엇이 연결됐는지 보아라.

21. 어느 때는 <같은 것>을 놓고도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보여 준다. ‘산돼지’로 보여 주며 계시하시고, ‘돌’로 보여 주며 계시하시고, ‘뱀’으로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 <한 가지>를 놓고 ‘여러 존재물’로 계시하신다.

22. <개성, 생김새, 모양, 처지, 입장, 사건들>을 각종으로 표현하며 깨달으라고 그같이 계시하시는 것이다.

23. <하나님 한 분>을 두고도 각종으로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어느 때는 ‘반석, 바다, 산, 태양’ 등 각종 만물을 보여 주며 계시하시고, 어느 때는 ‘사람’을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 그와 같이 ‘다양성을 가지고 각종으로 존재하신다.’ 함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24. 비유를 들어 <큰 말벌을 잡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이는 <사탄과 악인>을 상징한 것으로 ‘사탄과 악인을 잡았다.’함이다. 혹은, ‘시간을 잡았다.’ 함이다.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보여 주고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25. <큰 돼지>를 보여 준 것은 ‘본 존재물’이 크기 때문이다.

26. <돼지 몇 마리>를 보여 준 것은 ‘그 수’만큼 그러함을 보여 준 것이다.

27. 꿈에 <불고 누런 돼지 세 마리>가 있었다. 잡으러 가까이 가니 한 마리는 황소만 했고, 다른 한 마리는 중간 크기였고, 나머지 한 마리는 그보다 조금 작은 크기였다. 지나가는데 너무 커서 잡을 수가 없었다. 그 실상을 확인하니, ‘한 관광지의 크고 불고 누런 자연 동굴’이었다. 꿈의 계시처럼 ‘하나는 크고, 하나는 중간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은 크기의 자연 동굴’이었다. 누가 사진을 찍어 보내 주어 알게 되었다. 이같이 전혀 다른 것으로 비유하여 보여 주신다.

28. 어느 때는 <자연석>을 ‘뱀’으로 보여 주실 때가 있다. 꿈에 <가늘고 긴 뱀>을 보았는데, 그 실상은 ‘긴 돌’이었다. 고로 연관 지어서 안 풀면, 못 푼다.

29. 성령은 꿈에 보여 주시고, 감동시켜 연관 지어 풀게 해 주신다.

30. 태몽도 ‘비유’로 껴진다. <꽃>을 꺾든지, <과일>을 따든지, <여자 옷>을 사든지, <그릇>을 사는 꿈 등은 ‘여자를

날을 꿈'이다.

31. 태몽에 '용 꿈'도 있는데, 이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해당되는 꿈이다. <상상도 못 하는 큰 뱀>이 나오는 꿈도 '용 꿈'이다.

32. <큰사람>을 '용'으로 말했고, <왕들>을 '용'으로 말했다. 성경에는 사탄을 용으로 비유하며 말했다.

33. 꿈의 <각종 곡식과 작물들>은 '사람'을 비유로 보여 준 것이다. <잘된 것>은 '잘된 자'를 보여 준 것이고, <안 된 것>은 '안 된 자'를 보여 준 것이다.

34. <성령님>은 '성령의 상징체'로 보여 주시고, 혹은 '엄마'로 보여 주시고, 혹은 '여자들'로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35. <성령님>은 '성령과 연관된 자'를 비유로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36. 꿈을 꿔도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기도하고 자기 정신을 흔적으로, 영적으로 총명하게 하여 차원을 높이면, 꿈을 꾀도 잊지 않는다. 그리고 꿈을 꾸면 생각날 때 기록해 놔야 된다.

37. 꿈을 집중해서 생각하면, 현실같이 자세히 기억난다.

38. <꿈>도 '영의 세계'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연구하는 자는 꿈을 잘 꾸고 잘 본다.

39. 하나님도 성령님도 <꿈>으로만 '계시'하지 않으신다. 그때마다 합당할 때 '자연 존재물'을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고로 <낮>에는 '육의 눈'으로 만물을 보면서 계시를 받고, <밤>에는 '혼'으로 보면서 계시를 받아라. 가만히 받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받아라.

40. <낮>에는 '더욱 정신일도' 해야 된다. 소란하고, 육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면 '대화'로 계시를 받게 된다.

41. <꿈 계시>, <만물 계시>도 있지만, 늘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면서 <대화 계시>를 받아라.

42. 가장 핵심은 <말씀 계시>다. 늘 <말씀>을 잊지 않고 '자기 뇌'에 넣고 살면, '생명으로 영계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다.

43. <모든 계시>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을 벗어나서 계시를 받으면, '사탄 계시'를 받게 되고 '자기 주관적 계시'가 된다. 성령께 간구하고 확인해라. 말씀을 중심해라.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과거>에 잘했어도 <현재>에 못하면, '과거에 잘했던 것'이 무용지물이다. - 이는 마치 <과거>는 '좋은 과일'로 크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썩고 있는 격'과 같다.

2. 포도즙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최고 맛있다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 맛이 변하여 시고 못 먹는 정도가 되었다. <과거>에 '좋은 때'나 '좋은 과일 취급과 대우'를 해 준다. 그러나 <현재>에 '나쁘게' 변했으면 '좋은 대우'를 못 해 준다. <지금 현재>를 본다.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러하다.

3. <과거>에 잘했어도 <현재> 주를 등지고 나가 반대한다면, 더 이상 '주의 사람이다. 하늘 신부다.' 할 수 없는 것이다.

4. <과거>에 못했어도 <현재> 잘 행하면, '과거에 못했던 때'같이 대하지 않고 '현재 행하는 대로' 대해 준다.

5. <과거>나 <현재>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끝난 것’은 이미 다 끝나서 ‘재연’하지도 못한다. <지금 살아서 행하는 매일 그날그날>이 중요하다. 이 <현재>로 인해 <과거>도 <미래>도 ‘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한다.
6. <과거에 잘했을 때> 그때 대우받았고, 복 받았고, 행복했고, 행한 대로 다 받았다. <현재>는 ‘현재 행하는 대로’ 받고 있다.
7. <과거 일주일 전>에 몸의 때를 다 밀고, 밥 먹고, 예쁘게 멋있게 꾸미고 화려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보니 몸이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지고, 밥도 못 먹고 다녔다. <과거>에 화려했어도 <현재>가 중하니 <현재>에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된다. <과거>에 ‘왕’ 살아 먹었어도 <현재>는 ‘어떠한가?’ -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인생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를 보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본다.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 못한다면, 치료하고 회개하고 다시 단장해야 된다.
8. 매일 <지금 현재>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이 좌우되어 더 좋게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9. <과거의 것>은 ‘과거를 유지하는 데’ 쓴 것이다. 항상 ‘지금 현재 진행하는 이때에 잘하기’다. 그래야 <미래>도 ‘성공의 삶’으로 운명이 기울어진다.

<2016년 9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악>을 ‘심판’하면, <선>도 ‘영향’을 받는다.
2. 이때 <선>은 “왜 <선>을 심판하느냐?” 한다.
3. 방에 <개미들>이 시커멓게 떼를 지어 잔뜩 들어왔다. 살충제를 뿌려서 죽이니, 그 영향으로 <귀뚜라미>까지 비실대며 죽어 갔다.
4. <곡식>이 자라니 <잡초와 가라지>도 자란다. <잡초와 가라지>는 ‘곡식이 빨아들일 영양분’을 빨아들이며 해를 준다. 이때 <잡초와 가라지>를 바로 없애 버리면 <곡식>까지 영향을 받고 죽는다. 고로 <때>를 기다린다. 그때는 곧 ‘추수 때’다. 그때 <곡식>을 거두고, 그 후에 <잡초와 가라지>를 불사른다.
5. 이와 같이 <선>과 <악>은 같이 공존한다. 그러면서 <악>은 <선>에게 해를 준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바로 심판하시면 <선>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러다 <때>가 되면, 악을 심판하신다. 그때까지 <선>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6.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때, <선>은 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7. 소돔 땅은 죄악이 관영된 땅이었다. 고로 심판을 받았다. 그때 ‘그 시대의 의로운 자, 롯의 식구 몇 명’만 빼냈으니 쉬웠다.
8. 일개 민족이나 지역을 심판할 때, 하나님은 여건을 틀어 ‘의인들’은 그곳을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 후에 심판하신다.
9. 그 민족이나 지역을 심판했어도 ‘의인들’은 지켜 주고 도와주셔서 거기서 살아남게 하기도 하신다.
10. 어느 때는 심판 중에 ‘의인들’도 희생한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깨우쳐 주기도 하신다.
11. 하나님의 행하심은 수십만 가지다. 고로 인간이 이를 다 이해할 수 없다.
12.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게 심판하신다. 그러나 꼭 미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진 채 자기 마음대로 사니, 심판의 때가 와도 모르고 자기 삶에 빠져 산다.

13. <영감>은 ‘슬쩍’ 온다. 이를 생명시해라.

14. <영감>은 ‘눈치’다.

15. <영감>은 마치 ‘눈치’를 주듯 ‘슬쩍’ 온다.

16.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중심으로 흘러서 하다가 <불의>를 행할 때가 있다. 고로 자기 행위 속에 ‘의와 불의’가 섞여 있게 된다. 이것을 깨우쳐 주고, 스스로 ‘불의’를 버리게 해야 된다. 그러려니 오랜 시간이 걸린다.

17. 섭리사에서도 <의>를 행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기 욕성으로 흘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그것을 그냥 두면 더욱 욕성으로 행하여 ‘하나님 손해, 주 손해, 자기 손해’다. 고로 <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깨닫고 버리게 한다. 이러려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버릴 때까지, 그 시간만큼 ‘하나님 손해, 주 손해, 자기 손해’다.

18.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적하면, 자기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했다고 인식한 고로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른다. <뜻이 아닌 것>도 ‘자기 생활’이 되어 <의>로 여기고 행한 것이다. <의>와 함께 <불의>가 ‘비빔밥’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 확인하고 쪼개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나온다. 쪼개면 확실히 나온다.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모른다. 쪼개야 구분된다.

19. <최고로 무서운 무지>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섞어서 행하는 것이다.

20. <선악 분립>을 못 하는 자는 - 모르고 자기 안에 악을 키우는 자이며, 자기 친구나 애인과의 모임 안에 악을 키우는 자다.

21. <자기 생각>이 절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의 생각과 일체 되어 그 생각대로 행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야 된다.

22. 글을 쓸 때, 한 자도 안 틀리고 문구에도 아무 이상 없이 긴 글을 써 보아라. 잘 안 된다. 고로 꼭 여러 번 교정해야 된다. <자기 생각과 행실>도 그러하다.

23. <보통 마음과 생각>으로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으로 살기 어렵다.

24. <온전한 마음>으로 <정신일도>해서 살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

<2016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인간은 <육>으로 살아가니 ‘육성’으로 기울어져 살기 때문이다. 그 <육성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섞여서 살아가니,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모르고 행한다. 지도자가 이러하면, 그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친다. 자기는 ‘자기 생활’에 빠져서 사니,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생활에 빠져 살지 않는 자>가 그 말을 들으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 ‘그 말과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본다. 이에 ‘성령’은 주께 보고하게 하시고 바로잡으신다. 모든 보고를 들어 보면, 결국 ‘성령’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고하게 하셨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100% 같은지 확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면 안 된다. 바로잡아 줘야 된다. 선과 악을 쪼개 줘야 된다. 스스로 깨닫게 하여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해 줘야 된다.” 하신다. 파악해 보면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이 7~8개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것’은 희미하게 몇 개다.

26. 자기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파악해 보고 쪼개 보면, 교정할 것들이 많다.

27.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행위>를 모두 ‘주의 뜻’으로 알고 행한다. 자세히 파악하고 하나님과 성령께 물으면 “<하늘 뜻>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자기 뜻>대로 한다.”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에게 말해 줘도 “나는 주의 뜻대로 했습니다.” 하며 이해를 못 한다. 그동안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주의 뜻’으로 합리화해서 살았기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다. 고로 자기 모순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28. 긴 글을 쓰면서, 한 자도 안 틀리고 문구에도 아무 이상 없이 써 보아라. 그리고 다시 두고두고 읽어 보아라. ‘틀린 곳’이 많고 ‘교정할 곳’이 많이 나온다. 글을 쓸 때 완벽하게 했는데도 그러하다. <인간의 뇌>는 ‘전능자 신’과 같지 않다. <생각>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인간을 신같이 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권이 되니, 다스리지 못하고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점점 완전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수준’으로 올라오게 하셨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게 하려면, 절대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되, 여러 번 반복해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 (반복4) <보통 마음과 생각>으로는 단 하루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으로 살기 어렵다. <온전한 마음>으로 <정신일도>해서 살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으로 살 수 있다.

29. 매일 <기도>해라. 그리고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뇌 과일에 넣고 살아라.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늘 관심 갖고 신경 쓰며, 신앙도 생활도 생각도 졸지 말고 깨어 살아라.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30.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행하면, 정말 큰 문제다. 고로 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한 가지씩’ 꼭 깨우쳐 주어 알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가르친다. 시간은 각 개인마다 4시간씩 걸린다. 이런 자들이 섭리사에 수백 명이니,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들을 위해 시간을 다 써도 시간이 부족하다. 한두 번 편지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지를 써 주고 답이 오면, 또 그에 대해 답을 해 줘야 된다. 고로 며칠씩 그들에게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쓰게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전체 말씀>으로 내보내고 끝낼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일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 95%’가 다 듣게 되니, 은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런 자들을 그냥 놔두고 싶다. 이미 그렇게도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했기 때문이다. 행한 대로 받으라고 기도도 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영이 시들거리고 그 차원에서 내려와 ‘보통 영’이 된다. 또 그 지도자가 따르는 자들과 안 맞으니 따르는 자들에게도 해가 되고, 그 여파가 그 부서, 그 기관, 그 교회, 그 그룹까지 간다. 고로 그냥 놔두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놔두냐? <할 일>은 ‘청소’와 같다. 왜 청소 안 하나?” 하신다.

31. 각 부서, 각 기관, 각 교회 모두 주가 세웠다고 믿기만 하지 말아라. 글자가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해 주듯이, 그 행위가 잘못됐으면 꼭 이야기해 줘야 된다.

32. 그렇게 말해 주고 가르쳐 줘도 <못 하는 자>를 고쳐서 쓰려니 시간이 없다. 자기 잘못된 행위가 습관이 되어 고쳐도 잘 안 된다. 고로 이럴 때는 ‘교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위치에 ‘후자’를 세운다. 성경을 보아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행했는지 나온다.

33. 섭리사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맡기면, 그 일을 맡은 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금품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 그래 놓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같이 행한 대로 처리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거짓되고 야비한 자들’을 가려내어 잡초 뽑듯 뽑아내신다. 섭리사 안에 있으면서도 이러하니, 섭리사를 나가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나. 꼭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34. 그리도 애원하고 원해서 ‘사명’을 맡겼으면,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잘해야 된다. 목회도 그러하고, 다른 사명도 그러하다. 은혜를 잇고 자기 뜻으로 흘러서 하면, 다시는 그 자리를 안 준다.

35. 인간의 마음은 변화무쌍하다. 완전하게 돼야 주가 쓰고, 주께 쓰이면서도 계속 배우면서 해야 된다.

36. 어렵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자’를 키우면서 써야 된다.

37.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는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신다.

38.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인사치레로 대하거나, 그때그때 자기 기분대로 대하지 말아라. 주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서 같이 사니까 너무도 잘 알고 말한다.

39.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의 마음을 다 알려 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고로 전체에 손해다. 편지로 간단히 이야기해 주면 이해 못 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한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섞어서 행했기 때문이다. 주가 깨우쳐 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행하면, 새롭게 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는 자들을 바로 잡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선생도 내 육성을 완전히 없애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했다. 이에 대해서는 몇 달 전에 ‘하나를 신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었다. 그런데 주가 쓰는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하는 줄로만 알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찾아내고 제대로 하겠느냐. <매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자들>을 찾아보니, 40%도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하면, 결국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며 사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도, 또 ‘따르는 자들’에게까지도 손해를 입히며 사명을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못 꺾으니 그 <목>을 꺾는다. ‘사명’을 꺾는다는 말이다. 주가 말로 선포하면, 그 말대로 된다. 그러나 자기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 이는 주보다 차원이 낮으니, 높은 세계는 못 보기 때문이다. 주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40. <회개 기간>은 ‘청소하는 기간, 빨래하는 기간’과 같다. 곧 ‘전환 시간’이다. 고로 어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

41. 심판은 <주>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 <주>부터 해야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너도 내 몸이니 나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이다.

42. 속 아파도 <청소>해야 하늘로도 땅으로도 ‘큰 문제’가 안 생긴다.

43. 섭리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다. 그만큼 ‘그 위치와 그 차원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섭리사에 살면서도 ‘그 밑의 단계, 형제급의 신앙을 하는 자들’도 많다.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동물 연구가들이 ‘호랑이’를 연구하려고 한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봤다. 한 달쯤 지나니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 영역 표시’를 하려고 한 나무에 오줌을 싸고 갔다. 호랑이가 간 후에 토끼, 사슴, 여우 등이 와서 그 곳에 오줌을 싸고 ‘자기 영역’을 표시했다.

2. 호랑이는 <영역>이 매우 넓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닌다. 만일 그 자리에서 토끼, 사슴, 여우 등을 만나면 호랑이가 잡아먹는다.

3. 한번은 호랑이가 자기 영역에 ‘영역 표시’를 하고 가다가 이상하여 되돌아오니, 여우가 자기 영역 표시를 위해 오줌을 싸고 있었다. 이때 호랑이가 여우를 물어서 찢고, 자기 나무 아래에 놓고 갔다. 다른 동물들이 그 나무에 ‘자기 영역 표시’를 하려고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도망쳤다.

4.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깨달을 것들이 많다.

5. (성령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 자꾸 <말씀의 인봉>을 떼서 ‘말씀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라.

6. (성령께서 섭리사 전체에 주신 말씀) <말씀>으로, <시대 복음>으로 ‘시대 영역’을 확장해 나가라.

7. (성령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 <아직 풀지 못한 말씀>을 계속 풀어서 전하면, ‘자기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다.
8. (성령께서 섭리사 전체에 주신 말씀) <구원자가 풀어 준 말씀>을 믿고 따르면, ‘자기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다.
9. 조금만 더 하면 ‘배’로 한다.
10. 한 남자가 사냥을 하다가 ‘노루’를 잡았다. 그리고 같이 있던 두 어린 자녀에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집에 가고 싶지만, 열났을 때 한 골짜기를 더 누비다 갈게. 그러니까 ‘잡은 노루’를 너희들이 끌고 집에 가라.” 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다 ‘잡은 노루’를 엮어서 묶어 주고 “이제 끌고 가면 된다. 해 지기 전에 가야 돼. 만일 내가 한 골짜기를 더 누비다가 더 사냥을 못 하면, 내가 뒤따라와서 메고 가마. 너희 먼저 빨리 가라. 내가 다른 골짜기로 빠지면 이 길로 못 온다.” 했다. 그리고 남자는 다른 골짜기를 누비며 다시 사냥했다. 그러다가 ‘큰 멧돼지’를 잡았다. 고로 ‘배’로 더 얻었다. 모두 ‘운이 따를 때’ 해라. 휴거도 그러하고,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11. 섭리사에 이런 일들이 많다. 기도하면서 한창 <잠언>을 쓰고 <교정>을 하려다가, <교정>은 ‘말씀을 정리하는 조은이’에게 맡기고, 선생은 또 <잠언>을 받는다. 섭리사 성전들을 살 때도 그러하고, 여러 일들을 할 때도 그러하다. 이미 ‘잡은 노루’는 어린 자녀에게 끌고 가게 하고, 남자는 한 골짜기를 더 누비며 ‘더 큰 것’을 잡는 격이다. 고로 ‘배’로 더 얻은 일들이 많다.
12. 사냥을 나갔는데 모여서 ‘돼지, 사슴, 꿩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해 그늘에 지금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다. 곧 어두워진다. 순간 어두워지면 그 동물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런데 때 놓치고 어두워져서 어둠 속에 온 산을 헤매다가 넘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다. 해 그늘에 순간 무더기로 잡을 것인데, 미련하여 때를 놓치고 새벽까지 온 산만 헤맨다.
13. 이야기는 잡아 놓고 나서 하는 것이다.
14. <사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사탄>이 와서 골을 파먹어도 모르고 있다. 이야기는 잡아 놓고 해라.
15. 이야기로 희열만 느끼지 말고, 잡아서 소각해라. 그래야 사탄이 없어진다.
16. 여름에 하루 종일 <모기 잡는 이야기>만 해 봐라. <모기>가 자기 몸에 달려들어 자기 피를 다 빨아 먹어서 어지럽다.
17. <자기를 문 작은 모기 하나>를 잡으려 해도 ‘온몸’을 사용하며 ‘초집중’ 해야 겨우 잡는다. 그래도 모기는 손해 안 봤다. ‘자기보다 억만 배 큰 사람의 피’를 실컷 빨아 먹었으니 성공이다. 당하고 나서 잡지 말고, 당하기 전에 잡아라. 사탄도 이와 같다.
18.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당하기 전에 해라.
19. 뒷북치지 말고, 당하기 전에 해라.
20. 근신하며 기치를 벌인 군인같이 해라. 피는 자들이 ‘순간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
21. 자기 옆에 <잡초>가 있는데도 볼 줄 모르면, 생명 농사 못 짓는다.
22. <잡초>는 자세히 보면, 말도 행실도 다르다.
23. <잡초>가 누구냐. 가라지다. 피는 자들이다. 악평자, 악한 자들이다.

24. <밭의 가라지>는 가운데 ‘흰 줄’이 쳐져 있다. <역사의 가라지들>도 그러하다. 의인인 척하면서 말하고 행한다. 고로 자세히 봐야 된다. 의인인 척하는 말과 행실을 조심해라.

25. 물에 빠져서 물을 먹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솟았다 하며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 사전에 조금만 도왔으면, 물에 안 빠졌다.

26. (하나님) <한 생명>을 뺏기면, ‘큰 건물 하나’를 뺏기는 것과 같다.

<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목적>은 첫째 ‘자기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죄에서 구원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2. 주가 <죄에서 구원할 때>는 ‘물에 빠진 자’를 끌어내듯 끌어내는데, 방법은 이러하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고 따라오게 하여 ‘죄’에서 나오게 한다. 그리함으로 주가 자기를 구원했음을 알고 주와 일체 되게 하고, 주는 머리가 되고 자기는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 그리함으로 <육>도 사망권에서 벗어나고, 그 육의 행실로 인해 <혼과 영>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영원한 사망을 벗어나게 한다.

3. <인간의 죄>는 마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먼지가 몸에 묻어 있는 것’과 같고, ‘수십 가지의 노폐물이 몸에서 나와 때가 된 것’과 같다. 고로 <생활 속에서 짓는 죄의 가짓수>는 개인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

4.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5. 게으르고, 열심을 내지 않고, 빨리하라고 하는데 빨리 안 하고, 고치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성격과 모순을 안 고치고, 많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이 죄다.

6. 삼위와 주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죄다.

7.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 수십 가지, 수백 가지다.

8. <매일 회개>해야 <죄>에서 나온다.

9. 먼저 <죄>에서 나오고 봐야 된다. 고로 <회개>해야 된다.

10. <죄의 사슬>에 묶이면, ‘사탄과 마귀’가 끌고 다니고 ‘죄’가 끌고 다닌다.

11. 기도할 때 첫마디에 ‘사탄을 물리기치’다. 그다음에 ‘회개하기’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잘 말하기’다.

12. 더러운 죄로 인해 사탄과 마귀에게 끌려 다니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 또 그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다.

13. 세상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옷단장, 몸단장’ 하고 가는 것이 예의다.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아가면, 예의 없다고 쫓겨난다. 세상에서도 고객을 만날 때나, 손님을 만날 때나, 세상 선생님을 만날 때나, 상사를 만날 때도 그러하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는 어떠하겠느냐.

14.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15. <성령님>은 ‘정결의 신’이시다. 고로 ‘깨끗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16. 회개하여 죄를 청산하고 의를 행하며, 깨끗한 상태로 깨끗한 역사를 펴면서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
17. 깨끗하게 행하면 더러움이 안 생긴다. 고로 사탄이 침범해도 빛이고 깨끗하니 조건을 잡지 못한다.
18.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끌려 다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혼과 영>이 사탄에게 끌려 다니고, <육>이 사망권에 매여 살게 된다. 고로 급선무로 ‘죄를 해결’해야 된다.
19.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고 회개하여 죄의 사슬을 끊어 내야 된다. 그러면 ‘주’가 같이 행하신다.
20. 죄가 없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21.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으면, ‘죄에 묶여서 얻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여 얻게 된다.
22.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 사람이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육의 쾌락을 위해 살아도 그로 인해서 육신이 더 오래 살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게 하셨다.
23. 사람이 ‘영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행하고 많이 즐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영’을 위해 살면 <육>도 <영>도 표가 나게 하였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표가 나게 하셨다.
24.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행하며 사는 쪽>에 ‘영원한 뜻’을 두신다. 그쪽이 ‘생명권’이고 그쪽이 ‘영원히 존재’하니, 하나님은 그쪽에 모든 것을 집중하여 ‘축복’해 놓고 ‘종게’ 해 놓으셨다.
25. <육적인 것>은 육신이 먹고 자고 누리면 ‘육신’과 함께 끝난다. 그렇게 사는 쪽은 ‘사망권’이다. 고로 아예 좋게 해 놓지를 않으셨다. 육신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행하며 사는 쪽>에서 살아야 ‘육신’이 때가 되어 늙고 죽어도,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은 영원한 세계로 지속된다.
26. 사람들도 <임시로 살 집>에는 ‘임시로 쓸 것’만 만들거나 갖다 놓지, ‘평생 쓸 것들’을 만들지도 않고 갖다 놓지도 않는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세상>은 ‘육이 임시로 사는 집’이다. 고로 하나님은 <육의 것>에 ‘영원한 축복’을 두지 않으셨다. 고로 <하나님 편 생명권>에서 살아야 먹고 누려도 더 좋다.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축복’해 놓고 ‘영원한 축복’까지 두셨으니, <하나님 편 생명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쪽>에서 살면서, 이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2016년 9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쓰레기 매립장에서 샘물이 줄줄 흘러나온다면, 그 물을 먹겠느냐.
2. 죄로 덮인 마음으로 삼위께 영광 돌린다면, 그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3. <죄>는 ‘냄새 나는 쓰레기’와 같다.
4. 마음과 생각과 행위 속의 ‘쓰레기 같은 죄’를 매일 회개해라.
5.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방>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삼는 것’과 같고, <자기 마음>에다 ‘쓰레기 같은 죄를 매립해 놓고 사는 것’과 같다.
6. <최고 극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것>을 상징으로 하여 말하면 듣는 자들이 최고로 인식을 잘하고, 기쁨과 희열과 흥분을 느낀다.

7. 성령님은 천지를 통틀어 최고로 우아하고, 아름답고, 예쁘시다. 고로 예쁜 자들이나 예쁜 환경을 보고 “나와 같다.” 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 빨리 인식이 된다.
8. 하나님이 “너희는 한 형제다.” 하면, 사람들은 ‘한 배와 한 씨에서 난 자들’만 형제와 자매로 본다. 크게 보아라. ‘하나님 한 몸의 씨’에서 ‘성령님 한 몸의 태’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니 다 형제자매다.
9. 작게 보면 ‘자기 집, 자기 정원’이다. 민족적으로 크게 보면 ‘한 민족, 한 땅’이다.
10. 국가적으로 보면 ‘각 나라의 땅들’이 쪼개져서 230여 개 나라가 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 ‘지구라는 땅 하나’다.
11. 섭리사도 부서별로 보면 ‘각 부서’이고, 교회별로 보면 ‘각 교회’다. 그러나 크게 보면 섭리사는 ‘한 덩이’다.
12. 지체를 쪼개서 보면 ‘수십 개’다. 몸으로 크게 보면 ‘한 몸’이다.
13. 크게도 보고, 작게도 보아라.
14. 크게 보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
15. 크게 전체를 보지 않으면, ‘하나’로 안 보인다.
16. 섭리사도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아라. 교회로도 뭉쳐서 보고, 섭리사 전체로도 뭉쳐서 보아라.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해서 늘지 않는 것이 없다.
2. <자기가 편한 곳>이 ‘좋은 곳’이다. 고로 사람들은 ‘편한 곳’으로 간다.
3. <세상>은 모두 ‘생각을 실천한 세계’다.
4. <생각 실천>으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다.
5. <생각>에 따라서 하루가 잘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고로 정말 <생각>을 잘해라.
6. 잘되려고 노력해라.
7. 생각났을 때, 행하여라.
8. 생각났을 때 행하지 않으면, 잊기 마련이다.
9. <생각만 한 것>은 시간이 가면, 잊게 되어 있다.
10. <생각한 것>을 잊지 않아도, 때가 지나면 행해지지 않는다. 고로 생각났을 때 하라는 것이다.
11. <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데, <신의 생각>은 ‘기계를 작동해서 움직여야 하는 큰 중장비’와 같고, <인간의 생각>은 ‘손과 몸으로 들 정도의 장비’와 같다.
12. <전능자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해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

13. 세상에서 살다 보면 ‘거기에 관한 생각’에 묻히게 된다.
14.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그 주관권 안에서 ‘장점’을 택하면, ‘단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5. 가령 자기 것으로 두 군데에 땅이 있다 하자. 그중의 ‘좋은 한 군데’를 택하여 집을 지었다 하자. 그러면 ‘보다 못한 한 군데’는 그 나름대로 사용하면 된다. 장단점을 다 사용하면 된다.
16. 어떤 작품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 웅장하기만 하고, 저렇게 하면 웅장함이 조금은 감소되지만 조화롭고 아름답다.
17. 웅장하지는 않아도 조화로운 작품이 있고, 웅장함만 가진 작품이 있다.
18. <하나>만 가지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
19. <한쪽 편의 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양쪽 편>의 말을 들어 보아라.
20. <지난날의 것>과 <현재의 것> 두 개를 봐야 ‘궁금한 것의 답’이 나온다.
21. <한 사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22. 교회에서도 <한쪽 편의 말>만 듣고는 ‘답’이 안 나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23. 양쪽 다 100%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일체 되어 하든지 해야 100% 답이 나오고, 만들 것도 만들어진다.
24. <육>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세상>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육과 영>, <이 세상과 영의 세계>다.
25. 양면 예언, 양면 역사다.
26. <주체>와 <대상>이 함께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목적도 이루어진다.
27. 가령 <여자가 가진 땅>과 <남자가 가진 땅>을 합쳐야 겨우 집터가 나온다 하자. 그런데 <한쪽>에만 지으면, ‘집’이 아니라 ‘움막’을 짓게 된다.
28. 보고를 받을 때도 <양쪽의 상황>을 다 들어 보고 ‘답’을 찾는다.
29. 두 다리, 두 손, 두 눈, 두 귀 역사다.
30. 둘이 하나 되면 조화롭고, 튼튼하고, 아름답다. 또한 신비함과 웅장함까지 자동적으로 갖추게 된다.
31. 월명동 돌 조경과 나무들이 하나 되니, 조화롭음과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이 이루어졌다.
32. 항상 ‘두 개를 갖춘 구상’이다.
33. 월명동 지역은 ‘좌우에 날개와 같은 산 능선’이 있다. 고로 품위 있게 균형 있게 보인다.
34. 월명동 돌 조경은 ‘남쪽’과 ‘북쪽’ 두 곳이 있으니, 둘로 둘러싸여 <백보좌 형상>을 이루고 ‘품위 있는 모양’이 되었다.

35. 둘이란, ‘하늘과 땅’이며 ‘육과 영’이다. 이 둘이 하나 돼야 문제가 해결되고, 목적도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흠 없이 100% 완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2. 100% 한 자는 승리한 자다.
3. 100% 한 자는 인간으로서 그 면의 신 같은 자다.
4.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그 시점에서 하나를 더 하면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못 하면 ‘그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5. 마지막 하나를 더 하면, 운명이 ‘승리’로 뒤바뀌게 된다.
6. 불의의 세계로 가다가 마지막 끝에서 돌아서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7. 거리가 짧든지 멀든지 <조종>하기에 따라서 ‘가는 시간’이 좌우된다. <조종>하기에 따라서 ‘빨리’ 가거나 ‘늦게’ 간다.
8. 인생도 <조종>을 잘하면, 보람 있게 누리며 산다.
9. 인생 저마다 만사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조종하는 기술’이다.
10. 일생 동안 ‘딱 하루만 가는 길’이 있다 하자. 시간을 합당하게 잘 조종하면, 볼 것들을 다 보고 보람을 느낀다. 최고로 잘한 자다. 그러나 시간 조종을 잘 못 하여 어느 한 지점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 전체적으로 볼 것들을 다 못 보고 해가 넘어간다. 또 너무 숨 가쁘게 가면, 시간은 남는데 그 외의 남는 것은 별로 없다. <인생 일생의 삶의 길>도 그러하다. 너무 느리게 가면 할 것을 다 못 하고 누리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고, 너무 숨 가쁘게 가면 제대로 못 살고 시간이 남아 후회하게 된다.
11. 조종을 잘 못 하면, <매일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해를 넘긴다. 이런 자는 <하루 같은 인생 일생>도 그렇게 끝나게 된다.
12.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이 궁금하다고 차로 다니면서 빨리 후다닥 보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할 일이 없어 놀면서 “괜히 빨리 다녔네.” 하고 후회했다. 어떤 사람은 긴장을 짝 풀고 너무 여유 있게 다녔다. 결국 해가 넘어가서 볼 것들을 다 못 보고 아쉽게 끝났다. 인생, ‘조종을 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즐기면서 사는 삶’이다.
13. 인생길 가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긴장 풀고 여유 있게 하지도 말아라. 합당하게 조종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살기다.
14. 설교할 때도 ‘말 빠르기 조절’을 잘하기다. 설교자가 마치 ‘100미터 달리기’ 하듯 숨을 몰아쉬면서 땀을 빼고 숨 가쁘게 급히 설교하고 끝내면, 설교의 은혜가 사라지고 듣는 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끝난다. 그렇다고 ‘슬로모션’ 보이듯 너무 천천히 하면, 역시 설교의 은혜가 사라지고 듣는 자들이 답답해한다. <조종>과 <조절>을 잘하기다.
15. 전도, 관리, 강의, 교회 운영 모두 ‘유능한 조종’으로 승리한다.
16. 고기를 먹을 때는 충분히 씹고 맛을 다 본 후에 넘긴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나치게 놀거나 지나치게 다른 것에 시간을 보낸 후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할 일을 하면, 맛있는 고기를 대강 몇 번 깨

물다가 넘기듯 하는 자와 같다. 생활 속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시간과 속도를 잘 조종하기’다.

17. 차 조종, 비행기 조종, 배 조종, 스키 조종과 같이 <기쁨>도 <슬픔>도 <자기 인생>도 ‘조종’이다.

18. <화목의 삶>을 뺏기지 말아라. 조종을 잘못하면 화목을 뺏긴다.

19. <화목>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조종’이다.

20. 섭리인들은 같은 편인데, 같은 편끼리 겨루면서 승패를 다룬다. 이런 자들은 섭리 인생을 잘못 조종하여, 방향이 잘못된 자들이다.

21. 자기편끼리 겨루면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하고, 순위를 다투기도 한다. 이런 자들은 <생각의 방향>을 잘못 조종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자들이다.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22.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겨루면서 시기·질투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운다.

23. 섭리세계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편’이다. 세상에서 겨워서 이기고 하나님 편에 온 승리한 자들이다. 승리한 자들끼리 다투면 안 된다. 섭리인들은 모두 세상과의 다툼이 끝나고 ‘한편’이 되었다.

24. 세상은 경쟁자와 겨루어 이겨야 승리한다. 고로 늘 ‘경쟁과 겨루기의 연속’이다.

25. 패자는 “승자가 강해서 내가 패했다. 내가 몰라서 패했다. 다음에는 꼭 겨워서 이기자.” 결심한다.

26. 고로 승자는 이겨도 다음에 또 겨루니 걱정이고, 패자는 이길 때까지 도전의 연속이니 피곤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다.

27. 승자도, 패자도 서로 피곤하다. 이기고 지는 것에 감정이 민감하다. 그러다가 서로 곤란한 상태까지 간다.

28. 가족이나 친구와 겨루다가 승패가 나면, 승자도 패자에게 미안하고, 패자도 승자를 대하기가 서먹하다.

29. 섭리사 안에서 ‘주의 한 지체가 된 한편’인데, 세상에서 경쟁하고 겨루듯 하는 자들도 있다.

3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상세계는 저 어둠의 세상과 전혀 다르다. 섭리세계는 ‘서로 겨루고 다투는 투쟁과 경쟁이 없는 세계’다.

31. 섭리인들끼리 다투고 겨루어 이기고 받는 승자의 메달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 대회는 안 하신다. 섭리인들 모두 한편이 되어 사탄과 싸워 이기고 받는 메달만 있고, 세상과 겨루어서 이기고 받는 메달만 있다.

32. <주>도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탄’과 싸워 이겨서 ‘온 세상의 승리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다.

33. 섭리인들끼리 겨루고 싸워서 이기라고, ‘구원자 사명’을 준 것이 아니다.

34. 주와 같이 모두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이기면, ‘세계적인 승리의 메달리스트’가 된다.

35. 섭리사 안에서 서로 다투면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하려고 경쟁하고, 눈총을 주고, 심적으로 육적으로 다투는 자들이 있다. “저 사람보다 더 잘해서 이기고 사명을 받아야지.” 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그런 경기를 허락한

일'이 없다. 자기들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36. 하나님은 같은 편끼리 싸우고 겨루고 경쟁해서 이겼다고, 사명을 주며 쓰지 않으신다.

37. 섭리사에서 서로 겨루다가 한 사람이 패하고 한 사람이 이겼다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패자는 “나는 끝났어. 인물도 안 되고, 기도 안 되고, 힘도 백도 없어.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이제 보통으로 살아야지.” 했다. 승자는 “이제 귀히 쓰여지겠다.” 하며 희망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선생이 패자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며 말기니, “저는 못 해요. 자신이 없어요.”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누구랑 겨루다가 패하고, 이제는 힘이 없고 자신이 없어요.” 했다. 그래서 말해 주기를 “너는 세상을 이긴 자인데, 여기서 누구랑 겨루었냐? 그런 것 없다. 또 열심히 해라.” 했다. 그제야 섭리사에서는 서로 겨루면서 금메달 따는 것이 없음을 알았고, 섭리인들끼리 겨루는 것은 불법임을 깨달았다. 승자는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섭리사는 잘해도 몰라줘. 왜 나와 겨워서 패한 사람을 쓰지? 공의롭지 못해.’ 한다. 그러다가 선생이 “너 요즘 뭐 하나? 어서 나와 함께 전도하자.” 했다. 전도가 안 되어서 전도를 시켰다. 그 사람 역시 ‘섭리인들끼리 다투고 겨워서 이기는 것은 불법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38. 섭리세계는 ‘선배가 말과 행위로 후배를 누르고 이기는 역사’도 아니고, ‘강자가 말과 행위로 약자와 겨루어 상대를 떨어뜨리고 승리하는 역사’도 아니다.

39. 우리의 싸움은 ‘저 악에 속한 세상과 사탄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싸움’이다. ‘선과 악의 싸움’이다. -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삼위일체가 주시는 세계적인 급의 금메달>이 나온다. 이 메달을 딸수록 주가 ‘사명’을 맡기고, ‘주의 꿈’을 받는다.

40. 어떤 교회는 ‘주가 생명을 도우라고 보내어 쓰는 자’를 교역자가 경계하며 그 사람과 겨루었다. <주가 세운 자>는 ‘영적 싸움’을 했고, <교역자>는 ‘육적 싸움’을 했다. 이에 <주가 세운 자>는 ‘육적 싸움을 하는 교역자’에게 기가 눌려서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고 떠난다고 했다. 결국 ‘육적 싸움을 한 교역자’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41. 주가 맡기고 시킨 일에 충성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싸움이다. 악과의 싸움이다. 사탄과의 싸움이다. 강 건너편의 염소들과 싸워서 양이 이기기다. 양끼리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는 없다.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42. 섭리사 안에서 ‘옆의 잘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패해서, 하나님과 주께 못 쓰여지는 법은 없다.

43. 못하는 자들은 잘하는 자들을 의식하지 말아라. 자기편이다. 그들이 잘하면 ‘전체 점수’가 올라가서 자기에게도 이익이다. 고로 힘내라. 또 잘하는 자들은 못하는 자들을 보면, 도와주어라. 그들이 ‘사탄과 악’에게 패하면 전체 점수가 깎이니, 같이 패자가 되기 때문이다.

44. 같은 편끼리 줄다리기하지 말아라.

45. 같은 편이니 서로 줄을 당기고 있으면, 총감독이 보고 “왜 서로 겨루면서 힘을 빼냐? 상대방과 겨룰 때 힘을 써야지.” 한다.

46. 옆 사람 의식하지 말아라. 잘하는 자 때문에 “내가 손해다. 위축된다.” 하지 말아라. 개성대로 다 맡겼다. 고로 자기 개성대로 실력껏 행해라. 왜 자기 것을 안 하고 놓고 있으면서, 같은 신부들끼리 겨루느냐. 그러니 ‘피곤한 삶, 무지의 삶’을 살게 된다.

47. 꿈에 보면 <자기와 겨루는 자>는 ‘상대’다. 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자’요, ‘악한 자’다. 그것을 이겨야 된다.

48. <뱀>과 싸워 이기는 꿈은 ‘사탄’을 이기고 ‘인(人)사탄’을 이기는 꿈이다. 또한 ‘생시에 자기와 겨루는 것’을 이기고

얻는 꿈이다.

49. 꿈에 ‘큰 뱀’을 때려잡았다. 그 꿈을 꾸고 생시에 겨루어 ‘교회’를 사게 되었다.

50. 이와 같이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겨야 얻는다. 섭리사 신부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감정의 싸움’이며 ‘육적 싸움’이다. 고로 얻는 것이 없다.

51. 한 부모 아래 한 형제들끼리 경쟁하면서 ‘집 바꾸기, 밭 주기, 산 주기, 돈 주기 싸움’을 한다. 여기서 이겨도 자기 것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 가지고 있으니 안 준다. 오히려 “왜 서로 겨루어 힘을 빼서 할 일을 못 하나? 왜 헛시간을 보냈냐?” 하면서 책망받는다. 두 형제가 서로 겨루면서 힘을 다 빼고 부모에게 혼나고 다시 일을 하는데, 다리가 휘청거려서 주저앉아 할 일을 못 한다.

52. 세상의 것들과 겨루어 이기기다. 자기 육성과 겨루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기기다. 세상 유혹과 각종 불의와 싸워 이기기다. 게으름과 태만함과 싸워 이기기다. 우리의 싸움은 ‘악과 불의와의 싸움’이며 ‘생활의 싸움’이다.

53. 섭리인 전체는 ‘한 팀’이다. 물론 ‘지역과 교회’로 나누지만, 역시 ‘한 팀’이다. 교회끼리의 경쟁도 없다.

54. 세상 교회보다 더 많은 생명을 전도하여 이기는 경쟁을 하고 승리를 해라.

55. <휴거>도 같은 이치다. 옆 사람이 차원을 높인다고 해서 자기 휴거를 뺏기지 않는다. 저마다 ‘자기 코스’가 있어서 지장 없다.

56. 세상에서는 ‘열 명’이 겨루면, 승자 ‘세 명’만 뽑는다. 고로 <세상의 법>으로는 ‘공의’를 못 찾아낸다.

57. 하나님의 방법은 인원수 상관없이 ‘자기 인생과 신앙에서 겨룰 것들’을 겨루고 이기면, 다 뽑는다. 다 개성대로 금 메달을 따게 된다.

58.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같은 방법’으로 행하신다.

59. 섭리사에서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전도 특기자’이고, 어떤 사람은 ‘관리 특기자’이고, 어떤 사람은 ‘강의 특기자’이고, 어떤 사람은 ‘경제 특기자’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로 잘 모아 주는 특기자’다. 각자 개성대로다. 고로 서로 잘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뉘라.

60. 누구든지 매시간 자기가 처한 곳에서 세상과 악과 불의와 싸워 이기고, 자기가 처한 여건과 싸워 이기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선하고 공의로운 싸움’을 해라.

<2016년 10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61. <세상 싸움>은 ‘상대를 떨어뜨리는 싸움’이다. ‘상대를 쳐부수고 뭉개는 싸움’이다. 고로 돈과 힘과 백과 부정행위로 승패를 가리기까지 한다. 고로 패자가 지고도 억울한 방식의 싸움이다.

62.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은 자기 힘껏, 노력껏, 지혜껏 하는 싸움이다. 고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다. 하나님은 ‘심판의 저울과 자와 온도계’를 갖다 놓고, 정확하게 재신다. 모두 ‘자기 앞에 놓인 삶의 여건과의 싸움’이고, ‘삼위와 주 앞에 가는 데 있어 자기가 의를 행하며 악과 싸워 이기는 싸움’이니, 약해도 하면 된다. 돈도, 백도, 부정행위도 필요 없다. 못 하면, 또 하면 된다.

63. 지도자들은 세상 경기에서 열 명 뛰면 1, 2, 3등을 뽑아 쓰듯 하지 말아라.

64. 섭리인 모두는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고 이미 ‘승리의 메달을 따고 사는 자들’이다. 고로 각자 재능대로 합당하

게 사명을 주어 행하게 해라.

65. 사람의 얼굴도, 몸도, 재능도, 특기도 ‘각자 개성’대로 타고나기도 하고, 후에 개발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66. 사람을 볼 때, 개성대로 보아라. 그리고 개성대로 대해라.

67. 흔히 “나는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해 봤는데, 못 이긴다. 내가 위축돼서 못 하겠다.” 하는데, 이런 사고를 깨 버려라! 평생 그런 식의 겨루기는 없다. 네 개성대로 잘하면, 다 승리한다.

68. <휴거>도 섭리인들끼리 겨루기를 해서 ‘이긴 자’만 됐으면, 소수만 휴거됐을 것이다. 아니다. 수만 명이 휴거됐다. 고로 ‘개인전’이다. 그러니 옆 사람 의식 말고 해라.

69. 자기 혼자 ‘삶의 여건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악과의 싸움, 자기 육성과의 싸움’이니, 모두 억울함 없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70. 생활 속에서 ‘삶의 여건, 이성, 미디어, 자기중심, 자기 육성’과 겨루어 이기기다. 고로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공의로운 겨루기다.

71.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는 싸움>이다. 그러니 인물, 키, 돈, 백과 상관없고, 오직 ‘선한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의 싸움’이다. 패하면, 누구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하고 못 해서 패한 것이다. 못 하면, 다시 하면 된다.

72. 머리로 박고,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듯 하는 싸움이 아니다. <고생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생명길로 가는 싸움>이다. 고로 섭리인들끼리 서로 이기도록 잡아 주고 이끌어 주면서, 서로 모르는 것은 알도록 말해 주기도 해라. 이 싸움에서 이기면, <육의 세계>에서도 ‘육’이 하나님 주권권 안에 살면서 더 빛나고, <영의 세계>에서도 ‘영’이 잘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더 찬란하게 살게 된다.

73. 늘 ‘삼위일체와 일체 되어 사는 싸움’이다.

74. 매일 ‘의의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 싸움’이다.

75. 승리하려고 마음먹고 결심하고 하고자 하는 만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함께하니, 승리한다.

76. <할 일을 한 자>는 그 날 승리하고, 그 날의 금메달을 딴 자다.

77. <같은 성분>끼리는 ‘대립’이 안 된다. 물과 물은 대립 없이 섞이고, 불과 불도 대립 없이 섞인다. 이와 같이 ‘선과 선’은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78. <같은 선>에서 ‘변질’되면, 그때 ‘상극’이 된다.

79. 부부 일체다. 부부는 자기편이다. 고로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경쟁하지 말아야 된다.

80. 섭리사는 ‘이단과 구시대와 무지와 악과 악평자’와 싸운다. 오직 강한 시대 말씀과 기도와 의를 행함으로 싸운다. 이 터전 위에 삼위일체가 강하게 역사하신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2016년 10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설명>을 잘해야 된다.

2. <표현>을 정말 잘해야 된다.
3.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나, 행실을 할 때나 항상 ‘가장 적당하고 확실한 설명과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
4. <표현>을 잘못하면 이 말이 저 말로 전달되어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
5. 문학의 지혜, 표현의 지혜다.
6. <표현>을 잘해야 ‘안 될 것’도 된다.
7.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전도할 때나,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할 때나 ‘설명과 표현을 잘하는 것’을 명심하고 신경 써야 된다.
8. <설명>을 잘해라. <표현>을 잘해라. 이 말씀은 항상 생활 속에서 명심하고 써라. 성령님의 말씀이다.

<2016년 10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아무리 마음의 감각이 사라져도 <말씀>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자극’시키면, 감각이 살아나고 마음이 일어난다.
2.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알게 되기도 하고 모르게 되기도 한다.
3. 조금 더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4. 최대한 하고서 거기다 ‘조금 더’ 하면, 그로 인해 표적이 일어난다.
5. 최대한 하면 거기서 더 못 할 것 같은데, 항상 ‘조금 더 할 힘’이 남아 있다. 해 보면 안다! 그때 조금 더 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6.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조금 더 한 자>가 결국 성공한다.
7.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잘하면, 성공할 것들이 많다.
8. <자기 몸>은 ‘자기 것’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 <몸> 가지고 잘하면, 성공할 것들이 많다.
9. <자기 생각>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 하루만에도 성공할 수 있다.
10.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방법을 잘 써서 하면 성공하는데, 잘못 생각하여 모르고 살고 있다.
11. 더 얻으려고 바라기만 하지 말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서 써라.
12.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더 원하고 ‘그것’이 있어 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만 알고, ‘그것’만 찾고 얻으려고 노력하며 애태운다.
13. 가령 <집 지을 자료>는 있는데 <기술>이 없어 집을 못 짓고 있다 하자. 애간장 태우며 ‘기술자’를 찾는다. 또, 기술자를 찾고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세월만 가고 청춘만 늙어 가고 있다. 세상을 보아라. 기술자만 집을 짓느냐. 다들 배우면서 기술자가 되고, 자기가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집을 짓는다. 자기에게도 미약하지만 ‘기술’이 있다. 고로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열 번, 스무 번 해 보아라. 그러면 ‘기술자’가 되어서 자기가 할 수 있다.

14.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애태우고 있다. 행하면 된다!

15. <지혜>는 ‘판단’이다.

16. 방법을 달리하면, 판 세상이 된다.

17. <지혜>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다.

18. <지혜>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해 보는 것’이다. 그럼 유능한 자가 된다.

19.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였으니, ‘인간으로서 신’이 되기까지 <탁월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아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노력’해서 ‘발굴’하는 것이다.

20.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려면, 있는 고생 다 하고 살게 된다. <숨겨진 것>을 찾고, <잠재된 것>을 찾아라. 노력하고 발굴해라.

21. 인간은 노력하고 극적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고, 거기서 더 하면 ‘휴거의 영’이 되어 그보다 더 위의 차원인 최고 세계 <황금성 천국>까지 간다. - 모두 ‘자기 욕’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한다.

22. <휴거되어 황금성에 가기>는 ‘한 나라의 왕을 하는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기 욕’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극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다.

23. 한 나라의 왕을 해도 존재할 때까지 잠깐이다. 왕을 하고 끝나면, 자기가 왕을 했는지도 못 느낀다. 이는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서 나오면, 자기가 수영했는지 못 느끼는 것과 같다. 물이 몸에 닿을 때만 느끼듯이, 왕을 할 때만 느끼고 끝난다.

24. 인간은 <존재할 때>만 ‘몸’으로, ‘생각’으로 느끼게 된다. 존재가 끝나면,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만 든다.

25. <영>이 ‘생명권’에서 살아 존재하면서 계속 삼위와 주를 느끼고, 영원한 것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 <욕>도 그 반응으로 계속 느끼게 된다.

26. <심령, 생각, 영이 죽어 있는 자>는 삼위와 주도, 영원한 것도, 영원한 것으로 인한 기쁨과 보람도 못 느끼고 살아 간다.

27. 모르면 못 느낀다.

28. <욕>이 죽은 후에 <영>이 사망권에 묻히면, ‘현재 자기 영이 처한 곳에서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누린 것들’은 전혀 못 느끼고 기억도 안 난다. 모두 그와 같은 일을 겪기 전에 ‘아는 자가 말할 때’ 알고 깨닫고 행해라. 그러면 ‘영원한 고통’을 면한다.

29. 자기 영이 <지옥>에 간 후에 “내가 지옥에 왔네.” 하며 그제야 나오려 하느냐. 이미 결정돼서 영원히 못 나온다.

30.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메시아를 믿고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의의 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 영의 지옥 길’을 면하는 것이다.

31.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몸>을 가지고, ‘주의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잘하면, ‘천국’으로 가고 ‘황금성’에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몰라서 잘 못 하고 ‘지옥’으로 가니, <자기 무지>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원망스럽냐. 알면 ‘천국’으로 갈 자인데, 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

<2016년 10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32. 인생, 무기력하니 얼떨떨하다. 그때 '최고 좋은 기회의 때'가 다 간다.

33. <때>는 항상 머물러 있지 않는다.

34. <때>를 분석해 보자. 사계절에서 <봄의 때>는 딱 3개월이 있다. 이때 '씨'를 뿌린다면, <15일> 정도가 최고의 황금기다. 나머지도 <봄>이다. 고로 씨를 뿌리면 결실한다. 그러나 '크는 기간'이 짧아서 40~70%밖에 수확이 안 된다. 만사의 <자기 때>도 '황금기'가 있다. 그때를 제대로 못 쓰면 '상 차원의 것'을 못 얻고, '중간 차원의 것', 혹은 '하 차원의 것'을 얻는다.

35. 인생 <젊음의 때>는 10대, 20대, 30대다. 만일 <10대 때>부터 때를 안 놓치고 제대로 한다면, 엄청나다. 20대, 30대 때 시작한 자들과 아예 비교가 안 된다. 딴 세상이다.

36. 선생은 10대 초반에 제때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는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치고, 배고프고, 헐벗고,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던 때였다. 그러나 계절이 가면 바뀌듯,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뀌면 모든 고통도 그칠 것으로 알고 떠났다. 역시 가다 보니 비바람과 눈보라도 그쳤고, 고통과 고생의 길도 벗어나게 되었다.

37. 삼위일체는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면서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하게 하셨다. 고생돼도 <때>를 따라 <생명길>로 떠난 지 '21년'만에 서서히 공적 활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37년'동안 공적으로 행하고 난 후에 선생 태어난 지 '70년'만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계획하신 휴거의 때>를 맞아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었다. 20대 때 비바람이 끝나고 떠났으면 <하나님의 때>도, <세상의 때>도 못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38. <하나님이 보낸 시대 구원자>는 '표상'이다. <그와 함께 때를 맞춰 가는 자들>도 '하늘의 때'에 맞춰 가니, 그와 함께 얻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맞춰 가는 자들>로 인해서 '그 역사에 못 오는 자들'까지 간접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혜택은 못 받는다.

39. <하나님의 때와 자기 때를 맞춰 가는 자>는 마치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며 사랑하며 가는 자'와 같다. <때를 못 맞추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놓치고 혼자 가는 자'와 같고, '사랑하는 자와 100리나 떨어져서 가고 있는 자'와 같다.

40.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때>를 몰라서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역사'가 왔는데도 못 맞았다. 이미 '그'가 와서 '때'를 따라 갔는데도, 기다리는 구시대인들은 계속 구시대에서 기다리고 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 때를 알고 가는 자들'만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대 혜택'을 받고 가게 된다.

41. 그 때는 '하루'가 아니다. '메시아를 보내고 한 기간'이다. 그 기간에 시대 복음을 듣고 안 오면 '때를 놓친 자'다. 개인마다 <시대 복음을 듣고 따르는 때>가 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42. 시대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을 보면, '몇 달 만'에 <자기 때>가 간다. <주가 와서 시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간>은 '당세'이지만, <개인이 복음을 듣고 따르는 때>는 '잠깐'이다. 그때 따르고, 그다음에는 성장하고, 그다음에는 완성하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운명'이 좌우된다.

43. <자기 때에 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절감하면서 행해야 된다.

44. <때>가 지난 후에 얻으려고 하니, 90%가 힘들다. 어떤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45. 20대에 얻을 것인데 그때 놀고 즐기느라 30대에 얻으면, 얻어도 늦다. 또 효력도 없다.

46. <때의 눈>을 못 뜨고, <때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계속 '자기 것'이 오고 가도 모른다. 잠자는 자와 같다.

47. <때의 눈을 뜬 자>만 때를 보고 애태우지, <때를 모르는 자>는 잠을 자느라고 죽어 있어서 모르고 태평하다.
48. 어떤 때는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
49. <제때를 맞춰서 하는 자>는 ‘인간으로서 신 같은 자’다. <신>은 ‘때’에 맞춰 행하시기 때문이다.
50. <제때> 하니 보이고, 생각나고, 자료가 있고, 현실감이 있다.
51. <제때> 하면, 마치 장마가 끝나고 물가에 맑은 물이 내려가는 한때와 같다. 그때 모두 몰려가서 수영하면서 여름 수련회를 한다. 이때를 놓치면 물가에 물도 조금 내려가고, 가을이 와서 추우니 물에 발도 담그기 싫다. 또 추수한 후에 가을 산을 타고 단풍놀이 가느라 물가에 수영하러 가는 자들도 없다. 이와 같이 <때>를 놓치면, 엉망진창이 된다.
52. <때> 놓치면 - <때>는 ‘때’대로 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놀아야 된다.

<2016년 10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몸>이 무기력해지듯, <생각>도 무기력해진다.
2. 무기력할 때는 <시간>에도 감각이 없고 <일>에도 감각이 없다.
3. 무기력할 때는 마치 ‘졸린 상태’와 같아서 앞에 어떤 물체나 함정이나 절벽이 있어도 의식하지 못하고 행한다. 신앙도 이럴 때가 있다. 신앙에 무기력해지면, 그 상태로 몇 달, 몇 년씩 흘러가기도 한다. 그러니 아무 데나 가지고,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한다.
4. 무기력한 상태는 ‘반수면 상태’다. 고로 보고 들어도 분별하지 못하고, 보고 들어도 70% 이상 안 보이고 안 들린다. 이 단계는 하나의 ‘무의식 상태’다.
5. 잠을 자고 방금 깼을 때나, 잠이 덜 깨서 눈만 떴을 때도 무기력한 상태다. 이때는 5분이 갔다고 생각하지만, 순간 30분씩 간다. 이런 상태에서는 <생각>도 흐릿하다. ‘잠 환각 상태’다. 이와 같은 상태가 생시 때에도 많고, 신앙을 할 때도 생기게 된다. 그러면 할 일이 있어도 안 해지고, 리듬을 잃게 된다. 이것이 ‘생활의 환각 상태’다. 이 상태가 되면, 잠만 깬지 누워 있는 상태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빨리 전환해야 된다!
6. <자기 상태>를 파악하여, 빨리 <자기>를 다스리고 주관해야 된다.
7. 사람은 ‘편안함’을 좋아한다. 이것이 길들여지면 ‘편안함의 무기력 주관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반복되어 매일 그 상태에서 살게 된다. <무기력 상태>에서 생각도, 환경도 전환해라. 그리고 ‘뛰는 자들’사이에 뛰어들어 어서 같이 움직여라. 그러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면 몇 달, 몇 년씩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살게 된다. 그러다 우울증이 온다.
8.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할 일>을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몸도 생각도 강하게 하면서 행해라. 그때 ‘무한한 생각’도 들고 ‘할 일’도 하게 된다.
9. 무기력할 때는 본인이 모르니, 옆에서 생활의 잠을 깨워 줘야 된다. 이때 <신앙>도 잃게 되고 <신앙과 휴거와 말씀의 가치>도 잃게 되고, <가치의 판단>도 흐려지게 된다. 고로 섭리사를 멀리하며 나가게 된다.
10.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죄>도 ‘죄’로 안 보이고 ‘생활’로 보인다. 고로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한다.
11. 이 세상을 보면 ‘절대자 하나님의 뜻과 법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자기 생활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쁨과 희망으로

삼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에 대해 무기력한 자들’이다. 그 영향으로 ‘육의 삶도 무기력한 자들’이다.

12. <자기가 사는 세계>나 잘 알지, <탄 세계>는 전혀 모른다.

13.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며 하나님 주권권에 확 들어가서 사는 자들>은 ‘세상의 무기력함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의 세계’를 모르고 살아간다.

14. <자기가 살던 방식과 길>을 바꾸고 전환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매일 ‘새로운 세계’를 배우고 행함으로 전환된다.

15. <새로운 세계를 찾던 자>도 막상 그 세계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인지 알면서도 그 세계로 확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는 ‘과거에 살던 방식과 길’이 차원은 낮지만, 길들여져 있으니 쉽고 편하기 때문이다.

16. <과거에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춥고 고통스러웠던 자들>은 그 삶이 너무 싫으니, ‘과거보다 조금 더 나은 세계’를 만나면 스스로 ‘그 세계’로 전환한다.

17. <과거 자기 삶에 취미를 붙여 그 세계에 기쁨과 희망을 붙이고 사는 자들>은 거의 80~90%가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18.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구시대에 살면서 거기에 희망을 붙이고 사는 자들>은 젊었어도 늙었어도 ‘구시대 체질’이 배어 ‘구시대 세계’를 못 벗어난다.

19. 졸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때와 역사’를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로 와라. 왔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살아라.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20. 섭리사에서 신앙을 하다가 ‘탄 데’가 더 좋다고 나간 자들이 있다. 이들은 섭리인들을 유혹하며 자기 세계로 데리고 가려 한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지옥으로 가는 세계’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가 ‘사람의 탈’을 쓰고 가장해서 유혹하니, 그것이 ‘사탄의 행위’인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권권 안에 있는 자들’을 수십억 명이나 끌고 갔다. 악평자들도, 불신자들도, 악한 모임을 하는 자들도 그냥은 못 끌고 가니, 꾀고 유혹해서 끌고 간다. 그들의 말을 듣고 좋다고, 그 세계로 옮기는 자들이 있다.

21. <자기의식, 자기 생각, 자기 몸, 자기 삶을 옮기는 것>은 정말 힘들다. 얼마나 힘든지, ‘산’을 옮기는 것과 같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살던 위치에서 사람과 얹히고, 삶이 얹히고, 정이 들고, 뜻이 얹힌 자들’이다. 그러나 ‘자기 삶이 빈 몸, 빈 생각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권권을 옮기기가 쉽다.

22. <사탄>은 ‘완벽한 사기꾼’같이 유혹으로 꾀어 행한다.

23. 사탄도 그냥은 안 되니, 모든 말과 행위를 동원해서 꾀어서 데리고 간다. 무조건 “네가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세계다.” 하고 꾀면서, <지옥세계>를 <천국>으로 가장하여 데리고 간다. 지옥세계라고 하면 누가 따라가겠느냐. <섭리 길> 외에, <주> 외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24. 섭리사를 나가서 악평하는 발의 가라지들은 모두 ‘유혹자’다. 그들의 말은 100% 불신해라.

25. <사탄>은 그냥은 못 꾀니, ‘타 교단, 이단 교회’를 쓰고서 꾀는다. 어떻게 꾀는 줄 아느냐. “우리도 섭리사에서 전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꾀는다. 그동안 섭리사에서 약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으니, 그들이 ‘섭리사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것이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섭리사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단에 접목시키기도 했고, 또 그들이 섭리사로 몰래 들어와 배워서 가기도 했다. 그들이 ‘섭리사 말씀’을 100% 배우고 전하고 행해도 <휴거>가 안 된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한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낸 주>가 없고, <하나님이 두신 뜻>도 없기 때문이다. 마치 ‘낡은 옷’에 ‘새 옷’을 덧입힌 격이고, ‘헌 가게’에 ‘새 간판’만 걸어 놓은 격이다. 이 세상의 교회들은 모두 <구시대>이며, 혹은 <이단>이다. 오직 <섭리역사>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새 역사’다.

26. <구시대>는 ‘하나님의 새 시대 뜻’을 모른다.

27. <이단>은 하는 말이 모두 ‘끼워 맞춘 말’이다.

28. 아무리 ‘육지에서 좋은 씨’를 가지고 가도 ‘바다’에는 씨를 못 뿌리고 농사를 못 짓는다. <구시대>와 <이단>도 이와 같다. 아무리 ‘섭리사 좋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써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29.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다. 고로 하늘 역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시대 보낸 구원자>를 버리고 떠나면, ‘끊어진 것’이다.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좋게 생각해도 ‘끊어진 것’이다. 고로 그들의 말은 ‘한 단어’도 듣지 말아라. 다 유혹의 말이다.

30. 이미 섭리사를 나가서 할 짓 다 하고 주와 끊어졌는데, 다시 섭리사에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같이 있자고 유혹한다. 그러면서 상대도 자기 위치에 있게 하면서 검게 물들여 버린다.

31. 하나님은 오직 섭리사만 ‘새 역사,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끌고 행하신다.

32. 과거에 섭리사에 같이 있으면서 정들었어도, 지금 섭리사를 나갔다면 ‘죽은 자’다. 고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만나지 말고, 이제는 장사 지내고 끊어 버려라.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며 만나지 말아라. 수법이다. 그러다 자기 위치로 끌어들이 검게 물들여 버린다.

33. <끊을 것> 못 끊으면,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34. 그들 중의 더러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바 되어, 심판받고 끝나기도 했다.

35. 자기 의지, 자기중심으로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다 끊고, 오직 ‘자기 갈 길’을 가라. 그들의 수법에 걸려들어 유혹받고, 검게 물들까 하노라.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36. <섭리사 안에 있으면서 몰래 악평자 활동을 하는 자들>이 몇몇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주와 의논하여 결단코 심판하신다. 이미 양심 심판도 하였고 각종으로 심판하셨다.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은 연고다.

37. 이들은 섭리사에 있는 척하면서, 악평자들에게 설교 문서와 섭리 소식을 전해 준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연고로 ‘사망권에 속한 자’가 되었고, ‘사탄과 마귀’에게 쓰여졌으니 사탄과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정한 날에 드러나 내쫓긴다. 모두 기도해서 없애라.

38. 섭리사 교회 안에서 악평자 활동을 하는 자들이 가정국 중에 있기에, 이를 알고 하나님께 고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너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고, 때가 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나 여호와와 일을 배척하고 방해한 연고이며, 생명을 사냥한 연고다. 다만 말씀 듣고 돌이킬 기회는 주었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행위가 너무 악해서 어떤 자는 그 대가로 병으로 쳐서 지옥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고, 어떤 자는 경제로 심판했다. 각종으로 심판하여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하셨다.

39. 섭리사 각 교회에 있으니, 깨어 찾아라. 특히 교회에는 잘 안 나오면서 ‘말씀’은 꼬박꼬박 받는 자들이다. 이들이 ‘말씀을 받는 이유’는 악평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다. 고로 <말씀>은 각 교회에서만 듣게 해라. <말씀 문서>는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또 <말씀 영상>도 아무에게나 제공하지 말아라. 철저히 해야 된다.

40. 섭리사 행사 때나 예배 때나 각종 모임 때 은밀히 숨어서 활동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천법을 어긴 자들’이다. 모두 행한 대로 받아라.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손해를 끼친 대가다.

41.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행위>로 ‘추수 심판’을 한다. 그로 인해 ‘병과 고통과 경제와 수고의 해(害)’를 받는다.

42. 하나님은 집집마다, 교회마다 ‘더러움’을 청소하고 소각하신다.

43. 이런 자들이 교회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숨긴 자’도 죄 없다 할 수 없다. -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한 자>를 생각한 연고다.

44. 아프다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이름만 얹어 놓고, ‘말씀’을 받아서 악평자들에게 전한다. 그러니 아프다고 하면서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말씀’만 받아 가는 자들이 있으면, 내게 보고하여 분별하게 해라. 100% 온전한지 확인받은 자에게만 ‘말씀’을 주겠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섭리나라 모두 그리해라.

45. 공식적인 것이 아닌데, 따로 외국에 ‘말씀’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 안 된다. 외국에 있는 한국인을 통해 악평자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허락 없이 보내지 말아라. 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매일 ‘죄’가 쌓여서 모든 것에 ‘그 대가’를 받게 된다.

46. <사탄>을 전멸하려면, ‘사탄이 쓰는 자들’을 청소해야 된다.

47. 생활권 속의 벌레는 ‘더러움’을 쓰고 온다. <과일 벌레>는 ‘과일’을 없애면 안 온다. <사탄>도 그러하다. ‘사탄이 쓰는 자들’을 청소하면 된다. 섭리사에 있어도 악평자 활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 명단을 알고 있으니, 회개해라. 안 하면, 후에 ‘내적 광고’ 하고 안 받는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48. <가을>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나머지’는 모아 말씀 한마디로 불사른다.

49.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악평자와 연결되어 활동하는데도 주께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니 ‘죄’가 그냥 있다. <장로의 탈>, <각종 사명의 탈>을 쓰고 ‘악평자 활동’을 한다. 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판한다.

50. <사탄>은 ‘존재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옳은 말, 참말’을 한 적이 없다. 하는 말이 모두 ‘거짓’이다. 항상 ‘진리’와 반대로 말하고 행하며, ‘하늘 편’과 반대로 행한다. 오직 ‘지옥의 법, 악의 법’으로만 산다. 악평자들도 그러하다.

51. <무의식의 영, 무기력의 영>이 곧 ‘사탄’이다. 고로 사탄이 오면 ‘무의식,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고로 ‘맥’이 빠져서 산다.

<2016년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더하고 줄 때>만 좋아 미치고, <빨 때>는 안 좋아하면 안 된다. 빼야 답이 나오니, 빼도 좋아 미치고 기뻐해야 된다.

2. 수학도 더하고 곱하기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빨 것은 빼야 답이 나온다. - 인생도 이와 같다.

3. <좁은 길을 갈 때>는 ‘빼야’ 갈 수 있다. 좁은 길에서는 더 더하고 곱하면 못 간다.

4. <넓은 길을 갈 때>는 안전하니, 더 준다. <외나무다리>가 나오면 더하거나 곱하면 못 가니, 그때는 뺀다.

5. 더하고 넣어라. 그리고 빼라. 이것을 반복하면 기뻐 흥분된다.
6. <하나님의 생각>은 넣고, <자기 생각>은 빼기다.
7. <영성>은 넣고, <육성>은 빼기다.
8. <좋은 것>을 넣기만 하고 <빨 것>을 빼지 못하는 자는 마치 <좋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켰는데 <배설물>을 빼내지 못하는 자와 같다.
9. <좋은 것>은 ‘넣기’, <나쁜 것>은 ‘빼기’다.
10. 어떤 사람은 <나쁜 것>만 넣고 <좋은 것>은 뺀다. 그러다 ‘악인’이 된다. 결국 그 <육>이 ‘악의 세상’에 속해서 살게 되고, 그 <영>도 ‘악의 세상’으로 간다.
11. 사랑도 주고받기다. 주기만 해도 사랑이 존재하지 못하고, 받기만 해도 사랑이 존재하지 못한다.
12. 공전과 자전이다.
13. 하나님 앞에 주고, 받고, 넣고, 빼기다.
14. 연못에 ‘좋은 물을 넣기’다. ‘옛것, 나쁜 물은 빼기’다. 자기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인생도 그러하다.
15. 수학 공식은 <더하고 빼야> ‘답’이 나온다. 이와 같이 인생도 <넣고 빼야> ‘생활의 답’이 나온다.
16. 받았으면, 빼야 된다. 저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받았으니, <자신의 나쁜 성격, 버릇, 생각>을 빼라. 그래야 ‘받은 것’과 안 섞인다.
17. <말씀>을 받았으면, 회개함으로 <더러운 죄>를 빼내기다.
18.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 육성과 사탄과 악>을 빼내기다.
19. <말씀>을 받았으면, <불평불만>을 빼내기다.
20. 개발할 때 <모순된 것>을 빼내는 대로 빛나고, <좋은 것>을 넣고 쌓는 대로 빛난다.
21. <넣을 때, 줄 때>만 좋아하지 말아라. 계속 넣어 줄 수 없고, 계속 줄 수 없다. <받은 것>을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귀히 써라.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나와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의 죄를 회개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와는 회개하여 죄를 없애고 깨끗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노라.
2. <죄>가 있으면, 존재가 썩어서 존재를 못 한다.
3. <죄>는 마치 썩게 하는 ‘누룩’과 같다.
4. <죄>가 있으면, 이미 썩어서 더 썩을 것이 없는 사탄이 죄의 파장을 받고 와서 그 사람과 일체 되어 더 썩게 한다.

5. 찢으면 다른 것들도 다 찢게 하니, 버린다.
6. 인간이 찢으면, 쓸 곳이 없다.
7. 찢은 것을 다시 쓰려면, 원상 복구 시켜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8. <지옥>은 ‘악한 행위, 각종 불의의 행위를 그대로 나타내는 찢은 세계’다. 고로 지옥에는 ‘온갖 찢는 냄새’가 진동한다. 시체 찢는 냄새, 뱀 찢는 냄새, 생선 찢는 냄새, 동물 찢는 냄새, 음식 찢는 냄새 등 각종 찢는 냄새다. 모두 ‘죄의 냄새’다.
9. 지옥에서는 <죄의 냄새>가 ‘각종 냄새’로 나타나는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괴로워서 된다.
10. 지옥의 냄새는 코를 막아도 동일하게 난다. 막을 수 없다.
11. <지옥의 냄새>는 마치 ‘한여름에 찢은 지 열흘 된 시체에 코를 바짝 대고 있는 것’과 같다. <냄새>뿐 아니라 <찌는 것>이 강도 높게 눈으로 다 보인다. 코를 막아도 <냄새>가 나고, 눈을 감아도 <찌는 것>이 보인다. 그 <찌는 것>이 마치 장마 때 범람하는 물같이 자기를 덮치고,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12. 찢은 물에서 헤엄치지 않으면, 찢은 물속으로 들어간다.
13. 세상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다.
14.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삼위가 보낸 메시아’를 찾지 않고 믿지 않은 연고다.
15. 전쟁터에서 대작전을 하고 난 후에 보니, ‘죽은 자들 수백 명’이 들판에 늘비했다. 일주일 후에 시체를 묻어 주려고 끌고 다니는데, 시체 찢는 냄새가 진동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한 시체에 구더기가 한 자루씩 꿈틀거리고 있었다. 온 대지가 찢는 냄새로 진동했다. 너무 지독해서 계속 토했다. 창자가 넘어오는 것 같았다. 코를 막아도 냄새가 나서, 땅을 파고 땅에 코를 묻었더니 냄새가 덜 났다. <지옥>은 ‘죄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수백 구의 시체가 찢는 것보다 더한 상상도 못 하는 냄새가 난다. <지옥>은 ‘악한 행위, 불의의 행위 등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세계’다. 모두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라!
16. <죄의 가짓수>는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을 때는 몇 가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메시아를 만나고 배우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17. 자기가 하나님과 메시아를 만나지 않아서 죄를 모른다고 해서 죄가 적은 것이 아니다. 그저 모르고 살 뿐이다.
18. 하나님과 메시아를 만나서 ‘죄’를 알고 ‘회개’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일인지 깨달아라.
19. <죄>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20. 한 번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죄는 없어진다.
21. 다시 또 죄를 지으면 또 찢으니, 또 회개해야 된다.
22. 섭리사에서 ‘이성’으로 찢은 행위를 하다가 나간 자가 있었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다시 돌아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때 ‘사 놓고 오랫동안 못 먹어서 찢어 버린 과일’이 보였다. 이것을 보고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찢은 지 오래되었다.” 하셨다. 다 찢어서 회복이 불가능했다.
23. 한 범인이 도주하여 온 국가가 떠들썩하게 찾고 있었는데, 빨리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때도 ‘사 놓고 못 먹

어서 썩은 과일'을 찾았다. 결국 그 범인은 '썩은 과일'같이 되었다. 자살한 시체를 찾게 된 것이다. <썩은 행위를 한 자>는 '썩은 만물'로 계시해 주신다.

24.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해도, 인간으로서 깨끗한 것이다. 인간의 한계가 있다. 먼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전능자>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마음에 들게 하신다. 그리고 그 <영>을 휴거시켜 '천국', 혹은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하신다.

25. 세상에서 <인간>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만든 한계선'에서 <하나님>이 그 '혼과 영'을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신다. <금>을 다시 가공하여 <완전한 순금>으로 만들듯 하신다.

26. 완전히 만들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도 문제가 생긴다. 고로 인원수가 적어도 <완전히 만든 자들의 영들>만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신다.

27. <금>에다 '은'이나 '철'을 섞으면, <금>이 빛이 안 나고 가치도 떨어진다. 고로 <금덩이>가 작아지거나 개수가 적어져도 도가니에 넣고 분석하여 '황금'만 남게 하여 '순금'으로 만든다. 이와 같이 '천국에 가는 자들'도 완전하게 재창조하신다.

28. 천사도 '완전한 영'이 못 되어서 타락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믿고 사랑하고 따랐으면, '완전한 영'이 됐을 것이다.

29.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존재하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고로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타락한 것이다.

30. 어떻게 '완전함'을 나타내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 뜻을 따라 행해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사랑의 대상'이 되어라.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31. 하나님은 <인간들>을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신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고로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셨다.

32. 시대에 따라서 천사들도 이제 발전하여 그 위치와 차원이 더욱 완벽해졌을 것이다.

33. 만들기다. 고치기다. '전능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다.

<2016년 10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사냥'해라.

2. <시간>을 산짐승 잡듯이 '잡아야' 잔치한다.

3. 생각이 흐리멍덩하고 무의식 상태일 때, 시간은 무정하게 마구 흘러간다.

4.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려면, '초침'을 보아라.

5. 시간은 '사람의 빠른 걸음'과 같이 빨리 간다.

6. <5~10분>은 '한 곳을 쳐다보고 생각할 때 가는 시간'이다.

7. <한 시간>은 '6000번을 빨리 세는 시간'이다.

8. <6000번을 빨리 세는 시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한 시간이 일순간 지나갔다. 이 시간에 어떤 것을 구상하며 생각했더니, 많은 것을 깨달았다. 몸으로 행했더니, 그래도 행한 것들이 눈에 보였다.
9. 대화할 때, 시간이 순간 지나간다.
10. 급한 일에 빠져들어서 하니, 한 시간이 순간 지나갔다.
11. <하루>는 긴 시간이다. 그러나 놀면, 순간 지나간다.
12. <눈>은 ‘의식’하는 대로 보여서, 실수도 많이 하고 착각도 많이 한다. 방에 벌레가 가끔 들어와서 벌레를 의식하니, 다른 물체들도 수시로 벌레로 보이는 착각을 했다. 신경 쓰고 의식하면, 눈도 생각도 오해와 착각을 많이 한다.
13. <귀>도 ‘의식’하는 대로 들려서, 착각을 많이 한다. 누가 나를 부르나? 의식하고 신경 쓰니,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확인해 보니, 밖의 물체에서 나는 소리였다.
14. 어떤 사람이 마약을 먹고 본정신이 아닐 때 부모가 책망하니, 부모도 이모도 죽였다. 후에 조사하면서 물으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환각 상태는 본정신이 아니라서 모른다. * 지금부터 <교육의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15. 술 먹고 취하면 본정신을 상실해서 별짓 다 한다. 고로 술을 깨고 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 술 먹고 취해서 때리고, 소리 지르고, 길에다 배설하고, 옷을 다 벗고 거리를 다닌다. 그래 놓고 후에는 “내가 언제 그랬냐?”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술 취한 자를 그대로 거리에 놔두고 술을 깬 후에 확인시키니, 자기가 한 것을 몰랐다. 오히려 자기 옷을 누가 벗겼냐고 따졌다. 술 취해 미치광이가 되고 본정신을 상실해서다.
16.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환각제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본정신을 상실하게 하여 각종 실수를 저지르게 하고, 각종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살인까지 하게 한다.
17. 이성애 흥분돼도 본정신을 벗어나서 사고나 문제를 저지른다. 그때 강도짓이나 살인까지 하게 된다.
18. 흥분되어 환각 상태일 때는 본정신을 벗어나서 행한다.
19. <물>도 본래 제 온도일 때는 18~20도다. 뜨겁게 끓이거나 차갑게 하면 온도가 변해서 흥분된 듯 무섭다. 잘못하면 데어 죽거나 얼어 죽는다. <마음의 물>도 그러하다.
20. <마음>을 ‘좋게’ 흥분시켜야지 ‘나쁘게’ 흥분시키면, 그때 ‘나쁜 짓’을 해 버린다.
21. 술, 담배, 마약은 뇌와 정신을 마비시키고 나쁘게 흥분시키는 것들이다. 고로 본정신을 잃고 행하게 한다.
22. 술, 담배, 마약과 같이 <안 좋은 말>이나 <안 좋은 글>로 ‘불의한 것들’을 주입하면, 그 역시 본정신을 벗어나서 ‘악평자, 불의한 자’가 되고, 혹은 ‘살인자’가 되어 그로 인한 형을 받기도 하고,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한다.
23. 사기 치는 자도 마음과 생각을 나쁘게 흥분시키는 자로서 마치 술과 마약을 먹이는 자와 같다.
24. 사기 칠 때 사기꾼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먹이거나,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먹이거나, 마약을 먹여서 흥분시킨다.
25.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본정신 안에서 주신다. 고로 별로 극적 흥분이 없으니, 호기심이 덜하여 관심이 없고 멀게 생각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본정신을 잃지 말고, 꼭 행해야 된다.

26. 술, 담배, 마약, 이성, 미디어, 게임, 노름, 투기 등은 모두 본정신을 잃고 행하게 한다. 그로 인해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다 영혼까지 뺏긴다.

27. 사람의 <뇌와 마음과 생각>은 마치 ‘혀’와 같아서 극적으로 흥분되는 것을 원한다. 고로 술, 담배, 마약, 이성, 미디어, 게임, 노름, 투기 등에 빠지면, 그것을 극으로 더욱 느끼고 즐기며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러다 평소에 보통으로 하는 것들은 맛있는 음식같이 느껴지면서, 그것들로 인해서는 만족이 없어진다. 고로 계속해서 술, 담배, 마약, 이성, 미디어, 게임, 노름, 투기 등을 반복하며 행하다가 결국 중독된다. 그로 인해 ‘화’가 발생한다.

28. 자극적인 음식을 먹다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 고로 음식도 별다르게 만들려고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더 자극적으로 만든다. 결국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

29. 본정신과 본마음을 벗어나면, ‘생명의 안전선’을 넘어가서 사고 나고 다치고 죽기도 한다.

30. 술, 담배, 환각제, 마약 등 각종 것들을 만들어 사람을 흥분시키고 본정신을 상실하게 하여 사람에게 해를 주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는 자들이 너무 많고, 도망다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내서 1년이면 수백 명이 죽어 나간다. 살인하는 자는 ‘실수’가 아니다.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니, ‘실수’로 안 보고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본정신을 잃고 행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본정신을 잃지 말고 행해라.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31. 평소에도 술 먹는 자는 점점 심해지다가 본정신에서 벗어난 자가 된다. 그러다 본정신을 벗어나서 행한다. 살인까지 할 자들이다.

32. 하나님은 아예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어떤 것이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죄’가 되어 ‘짓값’을 받는다.

33. 회개하여 주께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가 평생 자기를 따르며 괴롭히고 점점 사망으로 끌고 간다.

34.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등 직급이 있는데도 술을 먹는 자들은 이미 ‘그 직급’에서 해임되었다. 회개하고 다시 복직해라.

35. 각종 불법을 행했으면 반드시 <회개>로 해결하여 ‘복직’해야만, 다시 깨끗하게 되어 ‘직급’이 주어진다.

36. 교회에서 ‘본이 안 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도 그 권위와 직위가 떨어진다. 하나님 앞에는 ‘직위’가 흐려져 있고, 이미 사라진 자들도 있다.

37. <섭리사 하나님의 법>도 ‘교통법’과 같다. 중앙선을 넘어가면 교통법에 벗어나서 사고 나듯, 섭리사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면 사고 난다.

<2016년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38. 시간도 안 지키면, 이미 하나님 앞에는 ‘선’을 넘어간 것이다.

39. <하나님의 법의 선을 넘어가서 사는 불의한 자들>과 <선 밑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모두 ‘죄인’이다.

40.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의로운 세계로 가는 자>만 ‘의로운 자’다.

41. <본정신을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며 사는 자들>은 일 저지르고 사고를 내서 ‘자기 신앙’을 죽이고 ‘남’까지 죽인다. 그냥 두면, 계속해서 ‘남’에게 해를 주니 심판한다.

42. <자기 불법>은 ‘꿈’으로도 확실히 보인다. <자기가 행한 일>은 ‘생시’에도 생각나게 한다.
43.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그 상태로는 ‘천국 생명의 길’로 제대로 안 가진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44. 가령 백지장 100장을 100명에게 한 장씩 나눠 줘야 되는데, 거기서 세 장을 썼으면 100%는 못 나눠 준다. 이와 같이 신앙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다.
45. 100m짜리 끈을 주면서 100m를 재야 정확히 100m 위치에 닿는다. 끈을 조금이라도 잘라 내고 재면 안 맞는다. 이와 같이 신앙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46. 100%만 ‘완전한 의’가 된다.
47. 만 번을 말해도 동일하다.
48. 구약 때도 신약 때도 <폐지하지 않는 법>은 6000년 동안 동일했다.
49.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땀어도 약물을 먹고 했으면, 자기는 음료수로 알고 먹어도 메달을 박탈당한다. 그것은 본정신, 본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50. 불법으로 흥분해서 행한 자들 모두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고, 그 일이 박탈되게 하신다.
51. 술이나 마약이나 이성으로 흥분돼서 기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는 ‘불법’이므로 심판을 받는다.
52. 어떤 사람은 연애를 하느라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이를 알고 그 일을 못 하게 제재시키니, 열심히 안 하고 겨우 신앙생활을 했다. 그동안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기 흥분으로 본정신을 잃고 행한 것이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가 약물을 먹고 경기를 한 것과 같아서 메달과 상을 얻지 못한다.
53. 오직 ‘하나님 사랑, 주 사랑 안’에서 ‘의로운 법’을 따라서 신앙의 경기를 해야 메달과 상을 얻는다.
54. 세상에서는 <법>이라고 해야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고로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이 인식하도록 성경에서도 ‘법’이라고 칭한다. 쉽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세상>에서는 ‘법’이라고 칭하지만, <천국>에서는 ‘법’을 부드럽게 ‘질서’라고 칭한다.
55. 천국은 ‘질서의 세계’다. 고로 편하다. <질서>를 벗어나면 행해지지도 않는다. <질서>가 마치 ‘몸의 한 조직’같이 되어 운행된다.
56. 세상은 ‘법을 범한 자들’과 ‘악한 자들’과 ‘제 생각대로 하는 자들’로 인해 타인들이 해를 받는다. 그런 자들은 세상 법으로 대가를 받게 하고, 하나님도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지옥의 고통을 주신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영을 지옥에 보내기도 하신다.
57. <하루 3분의 1의 시간>은 사람이 피곤하여 ‘잠자고 쉬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질서의 법을 주셨다. 그래야 존재하기 때문이다.
58.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의 3분의 1의 시간>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쉬는 시간으로 소모하게 된다.
59. 인간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3분의 1의 시간>은 잠을 자고 쉬어야 존재한다. 이와 같이 모든 일도 <3분의 1의 시간>은 ‘그것을 하는 데 준비하는 시간이나 기타 시간’으로 써야 존재하게 된다.

60. 세상에는 <우연인 일>도 있고 <뜻 있는 일>도 있다. 항상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라.
61. <우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로 인해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저 우연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고로 <우연>으로 발생하는 일도 많다.
62. 사과 한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사과 하나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굴러갔는데, 하필이면 그 좁은 하수도로 굴러 들어갔다. 아무래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다. <우연>이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었다면, 자기 생각에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된다. 고로 <우연>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하다.
63. 골프공도 수만 번을 치면, 홀에 한 번은 들어간다. <우연>일 때도 있지만 <기술>일 때도 있다.
64. 하나님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행하신다. <우연>과 <뜻>, <우연>과 <기술>이다.
65. <우연인 일>과 <뜻 있는 일> 두 세계로 존재한다.
66. 총으로 상대를 쏘려고 하지 않았는데, 총알이 벽에 맞고 튕겨서 다른 사람의 머리에 맞기도 한다.
67. 한번은 겨울에 새벽 축구를 하러 나가서 혼자 공을 차고 있었다. 나와 같이 나간 사람은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찬 축구공이 40m 멀리 날아가서 운동장을 돌고 있던 사람의 머리 정중앙에 맞았다. 그 사람은 머리 정중앙에 공을 맞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종일, 열흘, 한 달 동안 축구공을 찬다 해도 그렇게는 못 맞힌다. 몇 분 만에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마침 그곳을 돌아서 갈 때 시간과 거리를 딱 맞춰서 내가 찬 공이 ‘몸’도 아니고 ‘머리 정중앙’을 맞힐 수가 있겠느냐. 맞히려고 공을 차지도 않았다. 그 사람은 일부러 자기 머리를 맞혔다고 나를 오해하며 서운해서 울고 있었다. “네가 거기 가는지도 모르고 왔다.” 하니, “제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은 괜찮다고 했다. 알고 보니 <우연>과 <뜻> 두 가지가 일체 된 일이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 그때 본인이 그 순간 누구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 추워서 나오기 싫은데 선생이 나가서 운동하자고 해서 억지로 천천히 대충 뛰었다고 했다. 그때 머리 정중앙에 날아온 공을 맞은 것이라고 했다. 만일 기분 좋게 빨리 뛰었으면, 공에 안 맞았을 것이다.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뜻>이 있는 일이었다. 정신 차리라고 ‘공’이 ‘골’을 때린 것이다. 그 후에 그 사람은 말썽을 부리고 섭리사를 나갔다. 너무 신기하게 일어난 일이라서 잊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람도 그때 머리에 공 맞은 것을 생각할 것이고, 나도 왜 그때 하필이면 내가 찬 공이 그 사람의 머리에 맞았는지 생각할 것이다.
68. 메뚜기를 잡아다가 방 안의 컵 속에 넣어 두었다. 메뚜기가 그곳을 벗어나려고 70cm 위로 뛰었는데, 하필이면 다시 컵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 메뚜기는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았다. 높이 뛰었어도 직선으로 뛰어서, 떨어질 때도 직선으로 떨어져서 다시 컵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우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어떤 일이든지 <우연>일 때도 있지만 <원리>가 그러하니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69. 그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는데, 길을 가다가 ‘우연’으로 또 만나기도 한다. <우연>이다.
70. 풀면, 신기할 것도 없다.
71. 성경에서는 태양이 멈췄다고 말했다. 제대로 못 풀 때는 신기했는데, 제대로 풀니 신기할 것이 없었다.
72. 성경을 제대로 풀기 전에는 “신기하다. 신비하다. 표적이다.” 하며 환각에 빠진 듯 ‘환상’에 젖어 흥분했지만, 제대로 풀어서 가르치니 ‘본정신’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다. 재림, 불 심판, 말세, 부활, 지상천국, 공중 휴거, 선과 악, 각종 표적들을 제대로 풀어 주니 ‘본정신, 제정신’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73. 어떤 사람은 약물에 중독되어 환상에 젖어서 말하고, 환각 형상을 실제로 생각하며 흥분되어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니, 결국 미친 사람이 되어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많다.

74. 마치 산짐승을 잡듯 <시간>을 사냥하고 잡고 다스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
75. <생각>도 잡고 다스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
76. 무의미한 생각과 잡생각을 모두 제거해라. 그래야 ‘목적’을 향한 ‘생각’을 제대로 하게 된다.
77. 무의미한 생각과 잡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 생각을 스스로 책망하며 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멸된다. 뇌 신경은 명령하는 대로 작동한다.
78.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 ‘잡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의미가 있지만, <잡생각>을 하면 생각의 병이 생긴다. <잡생각>은 ‘하나의 병적인 일’이다.
79.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상태’가 좌우된다.
80. <잡생각>은 ‘잡념’이다. 다스려라! 나는 잡생각을 ‘적’으로 보고, 바로 ‘생각의 총’으로 쏘서 멀해 버린다.
81. 잡생각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뇌가 쓰레기통이 되어 있다.
82. <생각>도 ‘하나의 행위’다. <생각>으로 이성이나 다른 것들을 상상하며 낮이 빠져 즐긴다.
83. <생각>을 가지고 ‘삼위와 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행하고 더 얻고 더 변화되어 육과 영이 차원을 높여 빛날까?’ 생각하고, ‘공적인 것’을 생각해라.
84. 삼위와 주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육과 영이 더 행하고 얻고 빛나는 것을 생각하고, 공적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생각의 허공>에만 빠져 바람만 잡고 있지 말고, 행해라!
85.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안 하면, 생각이 식어서 잘 안 해진다. 좋은 생각을 하되, 행해라!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86. <새벽 시간>을 잡으면 5~6시간은 나온다. 그럼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만큼 되니 엄청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 여섯 시간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에 3분의 1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이다. 그러면 80년을 살아도 110년을 산 것이 된다. 오래 살려고만 하지 말고, 젊었을 때 ‘시간’을 제대로 써라! 그러면 오래 산 격이 된다. 오래 살아도 나이가 들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 나이만 먹었지 하는 일은 없다.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87. 젊을 때는 1년 뛰고 끝낼 일인데, 늙어서 하면 20년을 뛰어도 못 한다.
88. 젊을 때 할 일인데 70세, 80세, 90세, 100세 때 하면 - 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유익이 없다.
89. 젊을 때 기도하고 전도하고 차원 높일 일인데 그때 안 하고, 다 끝났는데 50세, 60세, 70세 돼서 하겠느냐. 젊을 때 못 한 것은 늙어서 100년을 해도 못 한다.
90. 그 날 할 일도 그 날 못 하면, 못 하고 끝나게 된다.
91. 어떤 일은 ‘그 때’ 할 일을 못 하니 ‘평생’ 못 하고 끝나기도 한다. <때>가 그리도 무섭다.

92. 순간 영감과 계시가 왔는데 빨리 기록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 결국 잊었다.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20대, 30대에 못 한 일을 70~80년이 지나면 하겠느냐.
93. <그 날 할 일>은 ‘그 날’ 해야 된다.
94. <한 일>만 인정한다.
95. <하겠다고 한 것>은 절대 믿지 말아라.
96. 주 앞에도 “할게요. 걱정 마세요.” 해 놓고는 ‘안 한 자들’이 너무 많다. 모두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기회가 안 온다. 고로 못 한다.
97. 인간은 <시간>도 <할 일>도 한 번 겪고 지나가면, ‘죽은 과거’가 된다. 과거는 죽어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 고로 ‘그 때와 그 시간에 따라서 오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98. 한 번 가는 인생길이다. 그때 꺾을 꽃을 꺾고, 딸 열매를 따고, 주울 돌을 줍고 가듯 해야 된다. 이 비밀을 알고 행하는 자는 못 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다.
99. 산짐승을 잡듯 <시간>을 사냥하고 잡아라. 그래야 잔치한다.
100. <시간>이라는 짐승을 사냥하여 잡아야 잔치한다.
101. <시간>보다 빨라야 ‘시간’이라는 짐승을 잡는다.
102. 선생이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조은이라고, 범석이라고, 교단이라고, 각 교회 목사라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다. 각 센터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그 일을 잘한다. 고로 주 안에서 골고루 다 행해야 된다.
103. 큰 돌이라고 해서 다 맞지 않는다. 작은 돌을 쌓을 곳은 작은 돌을 쌓아야 된다. 큰 돌과 작은 돌이 어우러져야 작품이 나온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104.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자’를 쓰신다. 그런데 미련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자를 모르고 거부한다. 하나님이 시키고 주가 시켰는데, 무지 속에 상극하여 문제가 일어나게 하고 해가 되게 한다.
105. 10대 세계는 10대가 잘 본다. 그 차원에서 보고 듣고 접하고 놀기 때문이다. 고래는 고래가 잘 알고, 새우는 새우가 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자’를 세워서 센터별로 쓰신다.
106. <혼자>서는 절대 ‘전체’를 못 본다. <혼자>서 ‘전체’를 보려다가는 실망만 하고 주저앉게 된다. 고로 ‘각 센터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을 다 세워서 한다.
107. <작은 실수>는 ‘교훈’이 되지만, <큰 실수>는 ‘해’가 된다.
108. 몸부림쳐 <시간>을 사냥하여 산짐승 잡듯 했는데 마음 놓고 태만하면, 잡은 산짐승을 놓치듯 <잡은 시간과 때>를 놓친다.
109. 확인하지 않으면, 그 넓은 곳을 놔두고 좁은 공기통에다 물건을 놓고 방 안의 공기를 탁하게 만든다.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다.
110. 31062절의 성경 말씀, 이 시대 성약 4만 잠언... 끝이 없다. 들어도 금방 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 계명>을 주시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의 법>을 주셨다. -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

량해라.

111. 이 시대 4만 잠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다. - 주와 일체 되어 <주>는 ‘머리’가 되고 <너희>는 ‘몸’이 되어 살아라. 그러면 그 차원이 ‘주의 차원’이니 다 잘되고, 다 구원이고 휴거이며, 다 황금성 천국에 간다.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 판단의 지혜다.
3. 생각할 때는 첫째, 빠진 곳 없이 골고루 해라. 이것이 생각이 할 일이다. 둘째, 생각한 것들 중에서 ‘좋은 것’과 ‘보다 못한 것’을 분별해라. 셋째, 최종으로 판단해라. 항상 이 세 가지를 한 틀로 하여 행해라.
4. 생각을 ‘깊게, 넓게, 높이’ 최고로 하고, 그중의 어떤 것이 좋은지 ‘최고로 분별’하고, ‘최종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 하나님과 대화하며 계속 기도하는데 귀에 소리가 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감히 소리가 나냐. 사탄, 마귀, 악마 모두 다 책임져라.” 하고, “모두 치료되고 조용해져라.” 하고 명령했다. 순간 조용해졌다. 하나님께 ‘뇌’에 대해서 물어보며 대화했다.
5. 지시하고 명령하면 ‘뇌신경’이 영향을 받아서 그에 따라 작동한다.
6. 옆에서 다른 사람이 말해도 ‘뇌’가 자극받고 행하는데, 하물며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면 ‘뇌’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 귀에 소리가 나서 뇌신경에게 “잠잠해져라.” 하고, 2차 기도를 하면서 또 말하니, 소리가 더 작아졌다.
7. 어느 때는 <자기 뇌신경의 영향>으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탄>이 와서 건들기도 한다. 둘 다 명령하여 잠잠하게 해라. * 이 외의 잠언 네 개 더 전해 주고, 오늘 잠언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8. <죄>와 싸워 이기려면 ‘회개’해라.
9.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불의’를 끊고 행하지 말아라.
10. <시간>과 싸워 이기려면, ‘시간’을 지켜라.
11. <자기와 겨루는 자>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탄>도 죄를 짓고 ‘지옥’에 간다.
2. 사람도 육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지옥’에 간다. 그리고 그 <육>도 세상에서 ‘지옥에 해당되는 주관권’에서 살게 된다.
3. <차원 높이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4. <시대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악을 공격하는 자’다.
5. <시대 말씀을 듣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을 공격하지 않는 자’로서 ‘악과 같이 사는 자’가 된다.
6. <시대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공격’하고, ‘자기 선의 주관권을 확장’해 나가게 된다.

7. <진리를 더 깨닫고 가르치며, 그 진리를 믿고 따르게 하는 자>가 ‘자기 터전을 넓혀 가는 자’다.

8. 확인하는 데 시간을 다 쓰다가 ‘때’를 놓칠 때가 있다.

9. 확인하지 않고 느끼고 영감 받고 해야 될 때도 있다.

10. 가령 손등에 모기 같은 것이 앉아 있는데, ‘이것이 모기인가? 이물질이 날아와서 앉은 것인가?’ 손끝으로 확인했다 하자. 확인해서 모기이면, 그때는 날아가 버려서 못 잡는다. 모기라는 느낌이 왔으니, 확인하지 않고 그냥 때려 버렸어야 된다. 이물질이면 그것으로 끝나고, 모기이면 잡았다. 이같이 생활 속에서도 ‘꼭 확인하고 할 것’이 있고, 확인하지 않고 ‘느낌과 영감이 오면 행할 것’도 있다. 확인하다가, 그것이 도망가 버린다.

11. 가령 오전 내내 산토끼를 쫓아다녔는데, 도망갔다 하자. 오전 내내 헛수고하고 걸어서 돌아 나오는데, 코앞에 칠닝쿨과 풀 더미가 있었다. ‘토끼’ 같기도 하고, ‘돌’ 같기도 하고, ‘풀이 말라서 불룩한 것’같이 보이기도 했다. 이때 <지혜>는 더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옆에 돌이 있으니, 들어서 던져 그곳을 맞혀야 된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다. 토끼이면, 오전 내내 쫓았던 토끼를 잡은 것이다. 이럴 때는 <확인> 필요 없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지혜의 판단’이다.

12. 한번은 기도하는데 너무 졸렸다. 잠을 이기려고 해도 잘 안 됐다. 그때 즉시 “사탄이 왔다!” 하고, 확인했으나 안 보였다. 천사가 보여서 물어보니, “사탄이 왔다!” 하고 확인할 때, 사탄이 슬그머니 도망갔다고 했다. 사탄이 걸리면 성령의 검이나 말씀의 검이 날아와서 고통받으니 모기같이, 해충같이, 여우같이 최대한 숨어서 다닌다고 했다. 천사를 보고 “네가 지켜야지.” 하니, 천사는 “천사도 싸우는 천사가 따로 있어.” 하면서, “사람들 본인이 사탄을 쳐 없애도록 도와주어, 스스로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한다.” 했다.

13. 말씀을 쓰다가 사탄이 왔는지 확인 안 하고, 속으로 “성령의 검아! 말씀의 검아! 날아가서 사탄에게 꽂혀라!” 했다. 천사에게 물어보니, “사탄 몇 놈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자리도 못 옮기고, 다 검에 꽂혀 소리 지르며 기어 도망가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아주 통쾌하다! 지혜와 모략과 전술이 뛰어나다.” 하며 좋아했다.

14. 확인하다가 소문나면, 악평자도 사탄같이 모두 알고 피해 버린다.

15. <시대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낮은 수준으로 ‘이게 진리인가?’ 확인하고 소홀히 하다가, ‘자기가 배우고 클 시간’인데 그 시간까지 꾸물거리며 배우고 있다. 전문가도 아니고 차원도 낮는데, 확인이 되겠느냐.

16. 10근을 다는 저울에다 100근이 달아지겠느냐.

17. <네 수준의 저울>에 ‘시대 말씀’이 달아지겠느냐.

18. 느낌과 영감과 예감이 있으면, 가면서 행해라. 그러면 확인된다.

19. 전도할 때도 다 확인하고 하려면, 그 생명을 놓친다. 이단인지, 악평자인지, 자기를 사망으로 데려갈 자인지 확인하되, 전도하고 가르칠 시간까지 확인하는 데 다 쓰지 말아라.

20. <시대 주인>인지 다 확인하고 따르려다가, 놓친다.

21. 확인할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꼭 확인해야 된다.

22. 한번은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가 다른 사람이 생각나서 편지를 쓰고 싶어졌다. 그래서 몇 줄 핵심만 써 줬다. “네가 떠올라서 성령이 편지해 주신다. 성령이 너를 생각나게 해 주신 것이다. 정말 잘해. 잘 생각해라.” 했다.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그때 자기가 채팅하다가 만난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편지를 받고 안 만났다고 했다. 옆의 사람에게

그 생명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편지 썼으면, 늦었다. 예감, 영감, 직감, 느낌으로 바로 행했다.

23.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릇된 행위가 드러나니까, 확인하면 피한다.

24. 새벽에도 감동되면, 일어나서 기도해라.

25. 기도해 주면, 삼위일체와 돕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듣고 가서 도와주고 같이 행해 준다.

26. <영적인 자>가 되어라. 영적인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27. <영적 능력이 있고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영의 차원이 높은 자>는 자기 위치에서 1000리 떨어져 있는 자도 눈으로 보고, 만지고, 잡아당기고, 말하면 듣는다. 신기하고 신비하고 오묘하지 않느냐. 영적인 자가 되어라. 그러려면 깊이 기도해라. 시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매사에 삼위와 주를 생각하며, 뇌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28. <육적인 자>는 차를 타고도 수천 리를 가서 만나고 와야 되지만, <영적인 자>는 현장에서 '자기 혼과 영'을 시키고 '성령'께 간구해서 '주'가 이야기하여 바로 만나서 해결하게 한다. 이와 같이 영적인 자는 '빨리'하고 '쉽게' 한다.

29. <자기 혼과 영>을 <육>과 함께 신령하게 하여, 이 황금시대에 '다이아몬드'같이 써먹어라.

30. <혼과 영>을 시켜서 '육이 못 가는 곳'에 가 보게 하여라. <혼과 영>을 시켜서 '발에 감춰진 보화'도 찾아라. 왜 '자기 혼'이고 '영'인데 녹슬게 가만히 두고, 힘들게 '약한 육'만 가지고 하느냐. <육>도 귀히 쓰고, <혼과 영>도 귀히 써라.

31. <혼>을 시켜서 하면, '육으로 평생 얻지 못하는 것'도 얻는다.

32. 육적인 자는 '육'으로만 하다가 몸이 다 망가진다. '머리'도 쓰고, '생각'도 쓰고, '혼'도 쓰고, '영'도 쓰면서 하면 쉽다.

33. 왜 <혼>을 놀리느냐. <혼>은 육보다 수조 배 빠르다. 그런데 왜 <육>으로만 생각하고 행하느냐.

34. <혼>이 어느 정도 빠른지, 빠르기를 재는 방법이 있다. <생각>을 보면 된다. <혼>은 '생각하는 것'같이 빠르다.

35. 고향을 생각하면, 순간 고향에 가진다. <혼>도 이와 같이 빠르다.

36. <생각의 빠르기>만큼 '혼과 영'도 빠르다.

37. <육>만 가지고 '육적으로 행하는 자'는 차원도 안 높아지고, 차원이 높아져도 강아지가 뛰는 정도로만 빠르다. <육>이 '정신, 생각, 혼, 영'과 함께 하고, '주의 영'과 '성령'과 함께 해야 빠르다.

38. <마음과 생각>은 '뇌에서 일어나는 핵적인 작용, 생명'이다. 육에 속해 있지만, '영적인 것'에 해당된다. 이 <마음과 생각> 때문에 '육과 혼과 영'이 서로 잘 통하게 된다.

39. <신령한 생각>은 '삼위일체의 말씀을 절대 지킬 때' 나온다.

40. 신령해지려면, 삼위일체의 말씀을 절대 지켜라.

41. 신령해지려면, 깊이 기도하며 삼위의 생각과 일체 되어라.

42. <확인하고 할 일>이 있고, 느낌이 확인이니 <느끼고 해야 될 일>이 있다.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하면 - 감동이 되고 힘을 받아 '할 일'이 해진다.
2. 기도하면 - 마치 육이 잠을 자다가 깨지듯이 '신앙의 잠'에서 깨어 '할 일들'을 알고 행하게 된다.
3. 기도하면 - 자기 정신이 기도하는 쪽으로 모아져서 '생각'이 또렷해지고,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게 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깨어나 '제정신'이 들어 급히 행하게 된다.
4. <기도>하면 - 뇌가 흐리멍덩한 상태에서도 '총명'해진다. 고로 열심히 '실천'하게 된다.
5. 기도하면 - 꿈으로나 생각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깨닫게 된다.
6. 기도하면 - 아픈 것도 낫게 되고, 아프려고 하다가도 기도의 능력으로 안 아프게 된다.
7. 꼭 자기 시간을 정해 놓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삼위와의 경건한 대화'이며 '사랑의 대화'다.
8. 기도하면 - '담대'해지고, '환난·시험·핍박·불의'에서 이기는 힘이 자체적으로도 생기고, 전능자가 더 함께하여 역사 하시기도 한다.
9. 주의 일을 하면서 공적인 일로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센터의 힘'을 잃고 '기도로 인해 얻을 것'을 못 얻는다. 고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사탄이 계속 역사한다. 공적인 일을 할수록 '기도는 생명'이다.
10. <기도>는 '일'이다. 기도하면 '자기'도 일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일해 주신 것과 같다.
11. 섭리사 전체가 <기도 기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 분야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실행하겠다." 하셨다.
12. 기도할 때 '각종'으로 간구해라. 자기와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육신의 생명들을 멸하려고 원자폭탄과 각종 살생 무기를 만들어 살생하려고 연습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노하심을 돌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13.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 가정의 죄, 섭리사의 죄, 민족과 세계의 죄들'을 회개하여라.
14. 가정의 죄, 섭리사의 죄, 민족과 세계의 죄도 '자기가 지은 죄'와 같다. 지구 세상에서 같이 사니 '공동 책임'이 있다.
15. 공동 샘플이 더러워지고 썩으면 '이미 그 물을 먹고 병든 자'도 손해이지만, '건강한 자들'까지 병들게 되니 더 손해다. 고로 건강한 자가 깨끗이 청소해야 된다. <청소하는 것>이 '회개해 주는 것'이다. 가정, 민족, 세계, 섭리사의 죄를 놓고도 청소해 주듯 회개해 주어야 한다.
16. <의인 한 명>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민족의 것, 세계의 것'을 들어주신다.
17.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위해, 가정 위해, 민족 위해, 세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죄'로 보시고,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과 같이 죄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
18. 진정 기도하고 기도대로 되는지 뉴스를 보아라. 기도대로 됐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해 주셨을까?' 의심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아라.

19.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많을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모두 함께 기도한 것’을 듣고 실행하신다. 죄의 쓰레기를 함께 청소한 격이다.
20. 자기가 청소했으면, 청소한 것은 깨끗해지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진정 기도한다면, 청소한 격이라서 깨끗해진다.
21.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이룬 의인들의 기도’를 듣고 실행하신다.
22. 항상 ‘죄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 ‘의인들’이 그들의 죄까지 담당하여 예수님처럼 대신 회개하여 살리는 것이다.
23. 자기 몸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세균이 침범하여 병이 오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하여 육도 영도 병들게 된다.
24. 자기 몸뿐 아니라 주변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도 세균이 침범하여 병이 오듯이,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육과 영에게도 영향이 온다.
25.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살려면, ‘회개’해라.
26. 왜 하나님은 10년, 20년, 50년씩 의인들을 괴롭힌 악평자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편지가 많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기간이기도 하고, 어떤 자는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 영>은 이미 심판을 받고 육도 영도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어떤 자는 육신이 병들어 죽어 가기도 하고, 어떤 자는 형벌에 처하기도 했다. <육>만 보고는 모른다. <영>을 봐야 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짓값’을 받는다.
27.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의인만 악평자와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받느냐고 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더 심판할 수 없이 심판했기에 더 줄 형벌이 없다.” 하셨다. 그런데 왜 그 <육신>은 계속 의인들을 괴롭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은밀히 나를 깨우쳐 주셨다. * 모두 다음 잠언들을 들으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평자와 악인들에 대해 은밀히 깨닫기 바랍니다.
28. 메시아 예수님을 괴롭히던 <가롯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하고, 그 영은 영원히 지옥으로 갔다.
29. 의인 다윗을 괴롭히고 악평하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 하던 <사울>은 전쟁 때 다윗이 막아 주지 않아서 적에게 쫓기다가 결국 할복자살하여 비참하게 죽었다.
30. 의인 다윗을 괴롭히던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공격하며 들어오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추격을 받았다. 달아나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꿰어 매달렸다. 다윗의 군대는 그 목을 잘라서 죽였다.
31. 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한 명도 빠짐없이 몰사했다.
32. 의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늘 싸우던 <아모리 족속의 군대>는 하나님이 전 지역에 사람이 맞아 죽을 만한 큰 우박을 장맛비같이 내려, 그 우박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호수아 군대가 멸했다.
33.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은 육도 영도 멸망받았다.
34. <의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며 죽이려던 자들>은 결국 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그 영들은 지옥에 갔다.
35. <하나님이 보낸 의인>을 괴롭히면, 그가 ‘자기 사명’으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공의롭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영’을 멸하기도 한다.

36.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히니, 엘리야는 능력으로 싸워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두 칼로 쳐 죽였다.

37. 하나님은 의인 다윗을 괴롭히는 이웃 나라 군대들을 다 멸하셨다.

38.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을 괴롭히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 본인뿐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들과 자녀들까지 다 멸하신다.

39. 하나님은 '절대 의인들의 편'이시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기 때문이다.

40. <하나님이 보낸 자>는 매일 하나님께 '행악자들의 행위'를 고한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

41. 하나님은 매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 이를 알고 기도해라. 회개해라.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마음과 생각>이란, '공기'와 같고 '떠 있는 구름'과 같다. 공기와 구름은 그때그때 세모지게, 네모지게, 원형으로 만드는 대로 된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흩어진다.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도 그러하다. 자기가 마음먹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의 틀, 생각의 모양'을 만드는 대로 된다.

2.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그냥 놔두면 무성한 잡초같이, 나무같이 자유분방하게 커 나간다.

3. 잡초를 잘라 내고 나무를 손질하듯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매일 잡고 다스려야 된다.

4. 기도할 때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전능자 하나님께 알리면,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모아진다.

5. 운동선수들은 늘 <겨루는 상대>를 놓고 경기하니, '집중'이 잘된다.

6. 수영 선수, 기계 체조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골프 선수, 육상 선수, 태권도 선수, 무용수, 가수들을 보아라. <겨루는 상대>를 놓고서 하니 '정신일도'를 잘한다.

7.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앞에 놓고도,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약하다.

8. 운동하는 눈으로 현실을 보고 겨루어 봐라. 잘된다.

9. 신앙인들도 전능자와 주와 같이 있으니, 이를 알고 '사탄'과 겨루며 '정신일도' 하고 행해라.

10. <신앙>은 '실체'이며 '현실'이다. <생각>을 '칼날'같이 세우고 행해야 된다.

11. <자기 육의 행위>를 자세히 봐라.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보고, 다스리고 고쳐라.

12. 고치려고 해야 고쳐진다. 그냥 두면 흐지부지하고 흐리멍덩하게 흩어진 구름같이 살아가게 된다.

13. 매일 '목적'을 두고 '말씀'을 행하며 <자기 생각>을 위대하게 만들어라.

14. <할 일들>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구해라. 찾아라.

15. <자기>가 ‘자기’를 교육하고, 차원 높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신앙의 달동네 삶’을 면하게 된다.
16. 섭리 나라 전체가 잘되려면, 그만큼 <개개인 모두> ‘칼날 같은 생각’과 ‘부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섭리사가 세력 있고 능력 있고 차원 높은 역사가 되어 보람되고 찬란하다. 그리함으로 사탄의 세력도 다스리게 되고, 신앙의 선진 문화 세계가 된다.
17. <무한한 것들>을 ‘눈앞’에 놓고도 ‘조건’을 세우지 못해서 못 얻고, 애처롭게 살다가 끝나지 말아라.
18. 최고로 얻고 영적으로 누려라!
19. <영>이 약하면 ‘생각’이 약하고, ‘사고와 마음과 행실’도 약하다.
20. <영>을 강하게 해라. 그러려면 ‘육의 행위’가 중요하다.
21. <영>은 ‘평소 육의 사고와 생각과 행위’를 흡수하여 성장한다. 고로 <육>이 ‘삼위의 생각’과 ‘온전한 진리의 사고’를 가지고 행해야 <영>이 그 행위를 흡수하여 강하게 되고 잘된다. 그러지 않으면 ‘파리하고 힘없고 병든 영’이 된다.
22. 부지런히 ‘자기 혼과 영’을 위해서 살아라. 결국 <육>은 쇠약해지다가 없어지고 <혼과 영>만 영원히 남게 된다. <육의 미래>가 ‘영의 삶’이다.
23. <육>은 봄날의 눈같이 점점 늙다가 사라지고, <영>만 영원히 남는다. 고로 <육>을 가지고 <영>을 위해 살아라. 나이 먹고 그제야 <영>을 위해 살아 봤자, ‘짓다 만 집’이 된다.
24. <영>을 위해 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 주’를 위해 살라는 말이기도 하다.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 그리고 ‘삼위일체와 주 사랑’이다. 알아야 사랑하니, 배워라. 또한 ‘깊은 기도’다. 그리고 ‘깊은 말씀’이다. 깊은 말씀을 깊이 들어야 감동되어 행해진다. <행한 것>만 ‘육’에게도 ‘영’에게도 실제로 유익이 되고, 온전히 존재하게 한다.
25. <주의 조건>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관리해 주는 자의 힘>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혼자’ 있을 때는 고꾸라진다. ‘자기 홀로 서고 자립하는 신앙’을 해라. <깨달은 자>는 ‘누가 시켜서 하는 신앙, 누가 잡아 쥐서 하는 신앙’을 안 한다. 본인이 숨 쉬듯, 먹듯, 씻듯, 잠자듯, 옷 입듯 한다.
26. <주>를 제대로 알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라. <주>를 제대로 모르면, 어린아이 정도의 힘밖에 없다. 혼자서라도 절대 신앙을 하고, 행여 서운한 말을 들어도 고꾸라지지 말고 가야 된다.
27. 절대 ‘불굴의 신앙’이다.
28. 혹여 잘못하여 주께 책망을 받고 혼나도 ‘절대적’이어야 된다.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고, 가르쳐 줬으니 감사해야 된다. 이런 신앙은 ‘불굴의 신앙’으로 목사나 지도자가 아니어도 ‘최고 급 신앙’이다. ‘주가 마음 놓는 신앙’이다.
29. 자기 성격, 혈기, 분노, 성질을 못 고친 자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잘못을 책망받을 때마다 솟아난다. 이런 신앙은 ‘불안한 신앙, 마음을 못 놓는 신앙’이다.
30.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기다!
31.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 자는 환난 때 다 나갔다. 나가서 ‘사망의 쪽정’이 되었다. 그리되지 말아라.
32. 1년, 2년, 3년 신앙을 했으면 신앙이 딱 잡히고 마음을 푹 놓을 정도가 돼야 한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무지>도 '죄'다.
2. 자기가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모르게 된다.
3. 고로 <무지한 죄>는 '자기가 노력을 안 한 죄'다.
4. <무지>로 수백 가지가 해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역천자가 된다.
5.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요, 미련한 자요, 생각이 낮은 자다.
6. 악에 속한 자도 노력하면, '불의에 속한 상태'에서 얻는다. 불의 속에서 얻고 쓰면서, 자꾸만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회개할 기회를 줘도 안 하고 계속 가다가 '흑암권'으로 넘어가 버린다.
7. <사랑의 본질>은 '좋아하는 것'이다.
8.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9. 사람도 좋아하면, 사랑하게 된다.
10. 만물도 좋아하면, 사랑하게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좋아하는 것은 곧 사랑하는 것이다.
12. 상대적일 때, 더 좋아하게 된다.
13. 좋아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한다.
14. 사랑은 뜨겁다.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도 육체를 가진 자라 한계가 있다.
15. 곤충도 사랑하면서 사랑을 느낀다.
16. <사람>이 차갑고 뜨거운 것을 느끼고, 배고픈 것을 느끼고, 아픈 것을 느끼듯이 <곤충>도 실 가닥같이 축소해서 느낀다.
17. 존재물의 '성분'에 따라서 그것이 변성되듯이, 인간은 '생각의 성분'에 따라 행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것들이 생겨난다.
18. <육의 세계, 인간>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면' 존재물이 생기지만, <영의 세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생각만 해도' 실제로 존재시키려고 하는 존재물이 생긴다. 그러나 영의 세계라도 <이방의 영들>은 생각하고 '영이 행해야' 행하는 대로 존재물이 생긴다.
19. 영의 세계에서 <일반 영들>은 어떤 목적인 곳에 가려면, 그곳으로 가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영>이 그 위치가 있다. <영>은 '생각'같이 빨라서,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영이 이동된다.
20. 육의 세계에서는 <육>이 생각한 곳에 가겠다고 하면, <육>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21. <육의 의>가 강할수록 ‘그 영의 힘과 능력’이 강하다. 고로 더 빨리 이동하고, 빛나고, 예쁘고 멋있다.
22. <의의 핵>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다. <땅에서 의의 핵>은 ‘삼위가 보낸 구원자’다. 고로 <삼위와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대로 ‘의’가 강해지고, 그에 따라 ‘영의 힘과 능력’이 강해진다.
23. 메시아는 ‘의’를 아니, ‘의’를 많이 행해서 ‘의’가 크고 많다.
24. 메시아는 전능자와 일체 되어 새 시대 창조 목적을 행하는데, 그것이 ‘의’다. 고로 구원받는 자들과는 ‘본질’이 다르다.
25. <자기가 행한 의>가 ‘해’같이 빛난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영원한 세계’를 세웠기 때문이다.
26. <선의 핵>이 무엇이나,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절대 지켜 행하는 것’이다. ‘삼위와 주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27. <온전한 진리를 알고 행하는 것>이 ‘선’이다. ‘의’다.
28. <온전히 아는 자>는 ‘메시아’다.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전히 알 수가 없다. 메시아가 와서 가르치고 행하게 하니, 온전한 것이 확인되어 ‘진리’를 알게 된다.
29.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된다.
30. 모르면, 이리 묶이고 저리 걸린다. 고로 모르면, 자유로울 수 없다.
31. 알아야 묶이지 않는다. 고로 자유롭다.
32.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나올 때 ‘새 시대 진리’를 듣고 행하여 ‘새 시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34.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그가 보낸 자’를 통해 인생들을 자유롭게 해 주신다.
35. <진리>는 오직 ‘메시아’로부터 나온다.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사를 나가서 자기들에게 맞게 행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 한 명’이다. 오직 <그 주관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신 시대 말씀>을 일부분 가지고 전하면서 ‘구원’을 이루겠느냐.
3. 선생이 10대 때 성자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때 군대 계급으로 나를 보여 주셨다. 계급이 ‘중령’이었다. 그때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역사>도 계속해서 커 나간다. 그런데 그 말을 가지고 야비하게 사용하면서 “중령은 거기까지가 사명이다.” 하면서, 무지한 자들을 꾀다. 또 선생이 “1차 21년 동안 역사를 편다.” 한 말을 이용하여, “21년 동안 역사를 하고 끝났다. 이제 제3의 섭리가 펼쳐진다.” 하면서, 무지한 자들을 꾀다. 역사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야비한 행위를 하니 하나님은 앞날을 아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끝에 <휴거 역사>를 하셨다. 누가 큰 자냐, 누가 하늘 신부냐, 누가 참제자냐. 누가 휴거될 자냐. 변질되지 않고 새 시대 주관권 안에서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희망으로 끝까지 가는 자다. 항상 <맨 끝>에 ‘가장 좋은 것’이 온다. 끝까지 ‘진리 안’에서 따른 자들만 <가장 좋은 핵>을 차지하고 <핵의 빛>을 받아서 살게 된다. 지금

은 섭리사 1차 부활기, 2차 부활기를 거쳐 <3차 부활기>를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휴거 후 차원 높이는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오직 온전한 말씀으로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라. 오직 주와 일체 되어 살아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오직 ‘주 말씀, 주 정신’으로 무장해라. 모두가 ‘참신부’가 되어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된다.

4. 하나님 앞에 그들을 놓고 기도하니 ‘죽어 가는 애벌레’를 보여 주시며 “이같이 끝난다.” 하셨다.

5. 그들은 고척동에 교회를 만들어서 일반 교회처럼 운영하고 있다. 가다 보니,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다. 주를 배척하고 악평하는 자는 그만큼 심판을 받는다. 악평을 받은 자는 악평을 받은 만큼 자신을 악평한 상대를 심판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심판한다.

6. 마치 도둑질하여 자기 것으로 삼듯 ‘시대 사명자가 받은 말씀’을 거의 이용하여 전한다.

7.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이용해서 ‘사망으로 가는 데’ 쓰는 자들은 전하는 대로 망한다. 하나님께서 “시대 말씀을 이용하고 사는 자들은 육도 영도 패망한다.” 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다.

8. 구약 때도 신약 때도 항상 ‘악평자, 불신자’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시대 가나안 복지>에 가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형벌받고 끝났다. 그리고 <후대>가 끊어지고 말았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9.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했으면 그런 일을 하겠느냐. 참으로 한심하다. 그 말에 현혹되는 자들은 더 한심하다.

10. 그들과 알고 지냈다고 연락하면서 주 앞에 보고하지 않은 자들도 죄 없다 할 수 없다. 고로 사명을 더 맡기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한다. 어리석은 지도자들과 섭리인들을 주가 책망한다. 결국 그들을 인정하는 자들이며,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다.

11. <사상과 정신>이 <몸>과 함께 ‘사망권에 간 자들’과 통하면, 그 사람 역시 ‘사상과 정신과 생각이 병든 자’다.

12. 진리를 알고도 자기 스스로 택하여 버리고 간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끌어다 다시 구원하지 않고, 자기가 택한 대로 행하게 두신다.

13. 모르면 - 그곳을 <생명길>로 생각하고, 스스로 희망을 가지고 <멸망>으로 간다.

14. 모르면 - 그대로 고스란히 어이없이 <사망>과 <멸망>으로 간다. <무지>가 그렇게도 무섭다.

15. 오직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온전히 <생명길>을 안다. 나머지는 모른다. 다 안다면, 모두 다 ‘구원자’가 된다. 오직 ‘머리’만 안다. ‘지체’는 모른다.

16. 개들은 ‘주인이 떨어뜨린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

17. <주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온전한 진리 외의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섭리사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중심으로 가르치고 사탄의 몸이 되어 행할 것’을 미리 아시고, ‘쭈정어들’은 <핵의 역사>인 ‘휴거 역사’가 오기 전에 모두 내쫓으셨다. 그들은 <핵적인 말씀> ‘휴거 말씀’을 듣지 못했다. 결국 ‘알곡들’만 남게 하시어 성자가 은밀히 가르치시고, 성령이 신부(로) 단장시켜 그날에 휴거시키셨다. 예수님 때같이 사탄은 항상 ‘불신자들’을 쓰고 역사한다. 그러나 이미 쫓겨난 자들은 <핵적인 휴거의 말씀>이 없고,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이용하여 전하고, ‘헛뜯는 말’이나 ‘사탄의 거짓된 계시’를 받아서 전할 뿐이다. 110일 기도 기간 동안 자기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면서, 악평자들과 이단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이들을 놓고서도 기도하여 매일 하나님께 알려라.

19. 지금은 어떤 일이라도 일어나면, 섭리인 모두에게 알린다. 알고, 오직 주의 말을 듣고 행하라 함이다.

20. 오직 ‘주’가 머리다. ‘주’만 머리 삼고 행해라.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와 일체 된 자들>이 어디에 있으나 ‘큰 자들’이다. 어느 민족도, 어느 지역도, 어느 교회도 상관없다.

2. <주와 교통이 안 되는 자>는 ‘주와 연결되어 다니는 길이 없는 자’와 같다.

3. <교통>이 그리 크다.

4. 어떤 자는 소로 길, 어떤 자는 손수레 길, 어떤 자는 흙길, 어떤 자는 아스팔트... 자기 차원대로의 길이다.

5. 자기가 주와 교통하며 ‘길’을 내야 된다.

6. 길 닦기, 마음 닦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닦다 보면 바위도 나오고 난(難)코스도 나온다. 그러나 ‘끝까지’ 뚫어 놔야 <교통>한다. 그런데 ‘닦다가 만 자들’이 너무 많다.

7. <주>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과 진리>를 벗어나면 ‘생명’이 이탈되어 온전한 생명이 될 수 없다.

8. 너희가 가는 길은 ‘삼위와 주가 만든 시대 영광의 영원한 섭리 휴거 길’이다. 이 길은 ‘황금성 천국’까지 통한다.

9. <길>을 내야 월명동같이 중장비가 다니기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든다.

10. <인생길>은 ‘주’로부터다.

11. <영원한 휴거의 황금 길>은 ‘주’로부터다.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2. <그 같은 원인>을 꿈이나 생시에 보인 것은 <그 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13. <실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라. 그래야 다시 실천하게 된다.

14. 잘못 쌓은 돌은 먼저 헐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다시 쌓는 실천을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다시 실천할 여건이 생긴다.

15. <회개할 것>을 안 하는 자는 ‘회개로 인한 할 일’을 못 하게 된다.

16.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 고로 절대 각 분야마다 ‘회개’해야 된다.

17. 생시에 ‘예쁘게 실천’하면, 꿈에 ‘예쁜 자’를 보여 준다.

18. 자기가 할 일을 하면, 다 할 수 있다. 안 해서 안 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최선’을 다해서 <절대자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인간도 <삼위의 대상체>가 되어서 영원히 살려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삼위의 대상체로 형성된 자>만 ‘절대자’가 되어 삼위와 일체 된다. 하

면, 다 할 수 있다. 삼위는 ‘자신이 한 대로 한 자들’을 찾아서 ‘대상체’로 삼으시고 같이 살아 주신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원자를 통해 “하지 마.” 한 것을 안 하면 ‘인간으로서 그 면의 절대자’가 된 것이고, “해라.” 한 것을 하면 ‘인간으로서 그 면의 절대자’가 된 것이다.

21. <삼위일체가 시키시는 일>은 ‘사랑하는 자가 자기 애인에게 시키는 일 정도’다. 고로 하면, 다 할 수 있다. 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키신 일>을 행하여 자기 욕과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시키는 기쁨>은 ‘영원’하다.

23. 세상에서 120층 빌딩을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렇게 힘들게 짓고 쓰고도 ‘영의 세계’로는 못 가지고 간다.

24. <자기 욕의 행위>로 <자기 영>을 변화시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면,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가지고 가서 영원히 누리고 산다.

25.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 모든 것을 온전히 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실천해야 하니, 그에게 다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그 단계에서 사니, 온전하게 안다. 고로 그에게 배우면 ‘확신’이 온다. 본 자가 말하니 확신이 오고, 믿고 행해진다.

26. <자기 욕의 행위>를 통해 <자기 영>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도록 절대로 만들어라.

27. 세상에서도 무엇이든지 만드는 대로 쓰여진다.

28. <자기 지능>으로 만들 것도 있지만, 큰 것은 <삼위와 주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29. 월명동도 만들어 놓으니 얼마나 좋으냐. 평생 쓰고, 후손들도 1000년 동안 쓴다. <구원받고 휴거된 자들>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평생 쓰고,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쓴다. 세상의 것들을 천국에 그 형상대로 최고로 만들어 준다.

30. 만들어 놓지 않으면 - <당세>에도 ‘집 없는 천사’같이 되고, <후손들>도 ‘집 없는 자들’이 되어 고생하며 불쌍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1000년 역사를 펴야 된다. 고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행하였다.

31.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못 지어 주고 죽으면, 어린 자녀들이 거리에서 거지같이 살게 된다.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자기 욕>을 가지고 ‘삼위와 주의 생각’을 실천하여 <자기 영>을 완성시켜라. 그리함으로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고, 거기에 ‘자기 영의 영원한 집’을 건축하여라. <자기 욕의 행위>로 ‘주’와 함께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최고로 하시는 일은 의와 사랑과 공의로 ‘자신을 빛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다음에 하시는 일은 ‘자신이 거하는 궁과 집을 만드는 일’이다. 그다음에 하시는 일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로써 ‘의의 나라를 만들어 존재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너희 <욕>과 <영>도 모두 이렇게 만들어라.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완전한 절대 신’이 되어 해같이 빛나시고, 거할 ‘황금 천국’을 금빛 찬란하게 만드셨다. <황금성 천국>은 ‘삼위가 거하시는 세계’이며,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어진 영들이 사는 세계’다.

34. 자기가 만들어야 사연이 깊고 정이 들고, 자기가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만들었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귀히 여기고 자랑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좋아하며 산다. 자기가 ‘자기 욕신의 행위’로 ‘자기 영’을 만들어서 ‘황금성 천국’에 간다. 구상은 하나님이시다.

35. <월명동>도 하나님이 구상을 주시면 그 구상에 따라 만들면서 사랑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넣어서 만들듯이,

<자기>도 하나님의 구상을 따라서 만들되 자기도 함께 만드는 것이다.

36. 자기 만들기, 자기 처소 만들기, 가정과 섭리 만들기, 자기 나라 만들기다.

37. 그 좋은 청춘의 때, 많은 시간이 있을 때 놀지 말고 <자기 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서 시대 일을 하여, 어서 <자기 육>도 <영>도 만들고, <자기 영이 거할 천국의 궁>도 지어라.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자기 땅, 자기 궁'이다.

38. 하나님의 구상대로 '자기 육과 영'을 만들되, 자기 차원을 높여서 보고 듣고 깨닫고 만들어야 후에 후회하지 않는다.

3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국>을 다 만들어 놓고, 시대를 따라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 대상들'을 찾으시는 중이다. 어서 '휴거의 육과 영'으로 만들어라. 삼위는 '하나님의 구상을 따라 만들어 놓은 자'를 찾으신다.

40.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든다 함은 '구원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만든다' 함이다.

41. <육>은 매일 변하고 늙는다. <영>은 늙지 않는다. 고로 <육>이 늙어 가도 자기 육을 가지고 시대 말씀을 행하며, <자기 영>을 '사랑과 선과 미의 영'으로 만들어라.

42. <자기 육의 행위>에 따라서 그 영이 '삼위의 사랑의 영, 미의 영'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영, 흉측한 영'이 되기도 한다.

43. <휴거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결혼하고 같이 살듯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같이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다.

44. <휴거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매일 시대 말씀을 배우고 행하며 살기다.

45. 육도 영도 <자기 행위>로 '제2의 창조'다.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46. 할 때, '그때 같이 할 것'을 해야 된다. 떡을 만들 때 '쑥새'를 넣으려면, 떡을 만들 때 '쑥'을 기계에 넣고 만들어야 된다. 다 하고 '쑥'을 넣으면 '쑥물'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만사의 모든 것들이 밥과 음식을 같이 먹듯이 <할 때> '그때 같이 할 것'을 해야 된다.

47.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첫날밤에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겠다고 10대부터 계획하고 희망에 차서 살았다. 그런데 첫날밤을 처음 맞으니, 거기에 빠져 행하다가 그 말을 잊어버리고 못 했다. 잊어버린 것도 한 달이 지나서야 생각났다. 너무 억울해서 일순간 주저앉았다. 10대 때부터 10년 이상 계획한 일이었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잊어서' 못 한 것이다. 다시 하려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야 하는데, 그것도 잊지 않아야 할 수 있다.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잊은 자>는 '축복'을 뺏긴다. 때가 지나면, 해도 효과 없는 일들이 많다.

48. 인생은 누구나 <처음 가는 인생길, 한 번뿐인 인생길>이다. 그런데 살다가 이것저것 처음 겪다 보니, '계획한 것'과 '핵'을 잊고서 살아간다. <안 잊는 법>이 있으니, 전능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 놓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신다.

49. 작품을 만들 때도 '핵'을 잊고 하면, 생명력이 없다.

50. <핵>을 잊고 하면, 구원받을 자들만 웅성대고 떠들썩하지 '구원주는 없는 세계'와 같다.

51. <핵>이 빠지면, ‘에인’은 빠지고 청중만 있는 격이다.
52. 청중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도 있고, 삼위일체와 주도 있어야 된다.
53. 세 가지 중의 한 가지가 빠지면 67점, 두 가지 중의 한 가지가 빠지면 50점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됐다! 내 구상 실천이다.” 하시겠느냐. 100%만 “됐다! 내 구상 실천이다.” 하신다.
54. <행할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55. <행할 것>을 배웠으면,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행해야 된다.
56. 잊으면, ‘될 것’이 안 된다.
57. 잊으면, ‘없어진 것’이다.
58. 생명을 잊지 말라고 한 말씀을 잊지 말아라.
59.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다른 것들은 안 보이고 잊게 된다. 사람은 한 가지에만 계속 집중하지 못한다. 고로 한 가지에 집중하고 행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동서남북을 살펴야 된다.
60. (다시 말한다.) <안 잊는 것>이 ‘축복’이다.
61. <잊는 자>는 ‘뇌와 생각’에 이상이 있다.
62. 잊으면 자기도 손해, 생명들도 손해, 주도 손해, 삼위일체도 손해다. 고로 그 사람은 ‘핵심자’와 ‘생명들’이 있는 곳으로 안 보낸다.
63. 한국에서 잊으니, 외국에서 보냈다.
64. 잊으면, 죽는다.
65. 잊지 않으려면, 매일 찾고 생각하고 매일 행해야 된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66. 하나님만 쳐다보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고 행해라. 그래야 ‘그 행위’를 통해 삼위가 역사하신다.
67. 성경의 모든 표적은 ‘행해서’ 일어났다.
68. 작은 자나 큰 자나 ‘행한 자’만 잘되고,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행한 것’만 남아 있다.
69. <행할 것을 행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갔다. 곧 ‘하나님의 뜻’이다.
70. <인간으로서 꼭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천국’에 갔다.
71.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같이 ‘행하는 연습’을 반복해라.
72. <연습>은 ‘평소에 잊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다.
73. 몸부림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생활의 걸작’이 나온다.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행하면, 다 '자기 것'이 되어 '당세에 욕'도 받고 '영이 영원히' 받고 누리는데도 열심히 안 한다.
2. 제시간에 일찍 일어났어도, 졸면 무슨 소용이 있나.
3. 일찍 일어나기에 성공하고, 졸지 않기에 성공하고, 기도 제대로 하기에 성공하고, 말씀 제대로 받거나 듣기에 성공해야 '새벽 성공'이다.
4.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성공'이다.
5. 모두 '할 것'을 해야 '제대로 성공'이다.
6. 어떤 사람은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일생 동안 정성 들여 행하다가 사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상 섬기는 것'을 택하여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단 종교'를 택하여 평생 희망을 가지고 행하다 사망으로 간다. 이것을 깨닫고 기도 중에 생각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너만 알지 말고, 모두에게 전해서 알게 해라." 하셨다. 그리고 잠언을 받아쓰기 시작했다.
7. 모르고 신앙을 하면, '잘못된 것들'도 다 '참'인 줄 안다.
8. 자기가 잘못된 종교에서 행하다가 성장하여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벗어날 것 같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생각하여 뇌가 그쪽으로 굳어 버렸고, 그쪽으로 행하다가 체질이 굳어 버렸고, 그 환경에 정들고, 같이 행한 자들과 하나 되었으니 벗어나지도 못한다.
9. 몰라서 '거짓된 것'을 택하고, '우상'을 택하고, '이단'을 택한다. 가다 보면 그쪽으로 뇌가 굳고 체질이 굳어서 모두 '참'인 줄로만 안다.
10. 자기가 잘못 택하고 행함으로 그 대가로 그 욕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의 '어려운 환난'을 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참고 견딘다.
11.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진리가 없는 이단 속에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줄 모르고, 악착같이 '자기에게 온 환난'을 이기려고 한다. 뇌가 검게 물들어서, 이제는 '검은 것'을 좋아하는 격이 되었다.
12. 술·담배·마약·이성에 <중독>되면, 뇌가 그것으로 조직되고 물들어 버린다. 고로 벗어나지 못한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이단 종교도 <중독>되면 못 벗어난다.
13.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접하고 온전한 것을 알고 깨달아야 삼위와 일체 되어 삼위가 이끌어 내신다. 고로 거기서 벗어난다.
14. 미디어나 이성이나 세상의 것들도 <중독>되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 못 벗어난다.
15. 세상 미디어, 이성, 세상 사랑을 아무리 각종으로 불나고 열나게 해도 '남는 것이 하나' 없다. '손해'만 남을 뿐이다. 불의를 끊고 자신을 다스리며 온전한 신앙을 한 자들과 비교해 보아라. '육적'으로도 표가 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표가 난다.
16. 똑같이 한 시대에 태어나 한 동네에 살면서도 '시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하나 행하고 시대 말씀을 행하면서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온 선생'과 '구시대 신앙으로 산 자들'을 보아라. 무엇이 다르냐. 그들은 처음에 선생이 잘못됐다고 하며 모두 나를 부정했다. 그래도 선생은 혼자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단호히 불신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 말씀'만 듣고 전하고 행했다. 또한 그들이 성경을 푸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모

순이고, 말도 안 되고, 젓 먹는 어린아이 같았다. 이를 분명히 알았고, 또 ‘내가 삼위계 배우고 깨달은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나 먼저 온전히 믿고 행하며 살았다. 그 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 그들과 나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땅과 하늘’같이 차이가 나 있었다. 그들은 다수가 맞다고 하는 말을 좇았다. 모두 미련하고 모르는 자들이 가르치는 말이었다. 나도 그 말을 듣고 행했으면, 그들보다 더 나쁜 꼴이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깨우쳐 주신 말씀을 안 믿고,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 행했다고 더 책망받고 더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도 ‘구시대 역사’를 펴고 있다. <무지>는 ‘육’이 죽어도 ‘영’까지 병들게 하여, 그 영들도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17. <무지자>는 ‘아는 자’를 그렇게도 막고 부정한다. 그러나 <아는 자>는 오직 삼위를 따라 행하여 승리한다. 그들을 만나서 “그때 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신앙도 아닌데, 나를 보고 부정하고 이상하다고 말했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안 왔으면 나도 망했습니다.” 하면, “나도 사람이니 뭘 알겠어? 나도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알았지.” 하고, 핑계 대고 돌려서 한마디로 말하고 만다. 이런 ‘무책임한 자들의 영향’을 받았으면, 나도 망할 뻔했다. 모두 이러하다. 모르니, 뭘 알고 말하겠느냐. 말해 놓고 책임도 못 진다.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 길’을 안 가면, 그들과 같이 망한다. 고로 ‘가정의 핍박과 반대’에도, ‘형제들의 핍박과 반대’에도 무릎 꿇지 말아라. ‘그들의 무책임한 말’에 무릎 꿇고 패하지 말아라.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8. 그때 선생의 어머니도 내게 말하기를 “네 큰형과 작은형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다. 동네 사람들도 너 이상하다고 한다. 나는 믿어 주고 싶은데 네가 잘못되면, 내가 못 말린 것을 얼마나 후회하겠냐.” 하시면서 극적으로 말리셨다. 그러나 나는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 그러니 가족들과 화평하게 지낼 것인데, 화목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냈다. 무지자들로 인해 그리된 것이다. 어머니는 몰라도 선생은 아니, 어머니에게 희망을 주고 안심시키면서 계속 연단받고 계절같이 ‘기도 생활’을 쉬지 않았다. 사람들은 걱정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한다. 결국 <섭리역사>를 펴고 승리한 후에 어머니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니, “그때는 네 형들과 교회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나도 모르고 그랬지.”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모르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내 길을 안 갔으면 우리 가정이 망했을 것입니다.” 했다. 어머니는 “나도 잘 몰라서 그랬다.” 하고, 한마디로 끝냈다. 고로 부모고, 형제고, 누구고 무지하게 반대하고 핍박해도 ‘뜻’을 두고 포기하지 말아라.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르고 말해 놓고, 일체 책임도 안 진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있다면 “나도 몰랐지.” 한마디 뿐이다. 고로 예수님이 그 시대 무지한 자들로 인해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눅23:34).” 하셨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짓값을 영원히 받기 때문이었다. 모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살 길’을 준 것이다. <땅>에서 용서해 주고 풀어 주니, 하늘에서 <하나님>도 용서해 주고 풀어 주셨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19.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믿고 시인하며 따라오다가 ‘자기 잘못’으로 부인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를 구원했던 자를 부인하고,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고, 그 육과 영 앞에 ‘무서운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20. 시대와 주를 깨닫고 알고 따라와라. 시험이든, 핍박이든, 환난이든 넘어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또한 ‘시험을 주고 핍박을 준 자의 책임’도 있다. 그들은 그 죄로 고통을 받는다. <이긴 자>가 그들을 용서하면 그것은 용서받지만, 계속해서 무지의 길을 가면 <육>이 계속 고통을 받고 <영>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된다.

21. <승리자>만 남아서 ‘승리한 세계’에 가서 누린다. <패자>는 알 수 없다.

22.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불의하게 행한 일, 아는 자를 핍박한 것, 막은 것’을 두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른다. -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바르게 말해 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23. <옳은 자>가 승리하고 누려도, <미련한 자>는 모르고 핍박한 연고로 그 사람을 계속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과거에 그 사람을 핍박하며 행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자기 자존심이 꺾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해서 얻은 것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고 한다. 무지하고 교만하며, 진리가 없는 자다. 하나님과 예

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못 믿으니, 자기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믿고서 행하는 자들이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

24.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옳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25. 예수님도 영계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르는 자들은 몰라서 그리한다. 나를 제대로 믿으면 그러지 않는다.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몰라서 그리한다.” 하셨다.

26. <아는 자들>은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맞고, 육도 영도 자유로운 자가 되어 산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아는 자들’을 보고 잘못됐다고 한다. 모르면서 겸손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의도 없다. <새 시대를 따라오는 자들>이 항상 의도, 생각도 훨씬 낫고, 마음도 선하고 겸손하다. <육계>에서 ‘육’이 기회를 놓치면, <영계>에서는 ‘육’이 없으니 기회가 없다. 그때는 ‘자기 육의 행위’대로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서 영원히 후회한다. <휴거된 영들>은 예비된 곳으로 가서 삼위와 주와 사랑하며 살기에, ‘그들이 사는 세계’에는 가지도 않고, ‘자기가 받은 것들’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보여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27. 세상에서만 부모·형제·부부·애인·가족이지, 죽으면 ‘육의 행위’대로 <영>이 각각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간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과 조직도, 이치도, 질서도, 체제도 다르다. 고로 ‘딴 세계’다. 만일 부모나, 형제나, 부부나, 애인이나, 가족이나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새 역사’에서 ‘주’를 믿고 같이 살았으면, <육>이 죽어도 <영>이 ‘같은 영의 세계’로 간다. 그러나 거기서는 더 이상 부모도, 형제도, 부부도, 애인도, 가족도 아니다. 다만 ‘알고 지내는 사이’다. <영의 세계>는 ‘이 세상의 제도’와 다르다. 영의 나라, 영의 제도대로 돌아간다.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28. 세상에서 부모 형제들과 같이 살다가 죽으면, 기억만 하지 딴 세상이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 가면, ‘각자의 행위’대로 갈려 가기에 각각 ‘딴 세상’이다. 생각만 할 뿐이다.

29. 세상에서 같이 살던 자들 중에서 그 영이 ‘사망’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기도 한다. - 각각 <자기 육의 행위>대로 갈려 간다. 고로 세상에서 같이 살다 죽으면 기억이나 할 뿐이지, 영의 세계에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야기나 꽃피울 뿐이다.

30. <구원받고 죽은 자>는 ‘육신이 산 것’과 같아서, <그 영>이 ‘영계’에 있어도 ‘이 세상의 구원받은 자들’과 통한다. 똑같이 ‘신앙’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신령하면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영’을 보기도 하고, 그들과 대화도 한다. 이는 마치 <같은 세상, 같은 나라>에서 살지만, ‘다른 곳에 떨어져 사는 격’이다.

31. <육신>이 살아 있고 <사고>가 같으면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통하고 왕래도 한다. 이와 같이 <영>이 죽지 않고 ‘산 영’이 되면 ‘이 세상에서 생명권에 살아 있는 자들’과도 통한다. 합당하면 왕래도 하게 된다.

32. <신령한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통해서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영’을 오게 하여 만나기도 하고, 전화하듯 통하며 이야기도 할 수 있다.

33.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 세계 교통’이 있지만, 모르니 사용을 못 한다.

34. 이 세상에서도 ‘아는 것’만 사용하듯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35. <아는 자>만 영의 세계와 통하면서 사용한다.

36. 가전제품과 스마트폰과 각종 문화를 보아라.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발달된 자들>만 사용하지, <모르는 자들>은 못 사용한다. 영의 세계도, 새 시대 모든 일들도 그러하다.

37. 종교나 각종 문화를 보아라.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발전된 곳>은 100년, 200년 앞서가는데, <모르는 곳>은 100년, 200년 뒤떨어져서 산다.

38.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린 역사를 ‘예수님 시대’ 때 시작하셨다. 그러나 구시대에서 기다린 자들은 지도자들부터 발 벗고 나서서 ‘무지’로 반대하고 불신했다. 그로 인해 4000년이 뒤떨어진 신앙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서 새 역사를 행하셨는데, ‘무지’로 행하다가 망했다.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깝냐. 그들이 아무리 현재에 ‘육적’으로 누리고 살아도, ‘그들의 최고 소망’은 이루지 못했다. 고로 최고로 불쌍하다. 실패한 것이다.

39. 이 시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2000년 동안 기다리고 바라고 원했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모르니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2000년 전처럼 뒤떨어져 ‘무지’로 살고 있다.

40. 사람은 신이 아니라서 ‘한 번’ 모르면 ‘평생’ 모르고, 기존에 아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

41.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알고 모르고에 따라 천층만층의 삶’이다.

42.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43. <아는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다.

44. <아는 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다가 죽는다.

45. <하나님의 뜻을 처음 아는 자>는 ‘시대 구원자’다. 그가 처음에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이니,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수십 년 동안 가르쳐서 먼저 알게 하신다. 고로 <그>를 통해 모두 알게 된다.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가르쳐서 알게 된 것이다.

46. 구원자는 가장 먼저 알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구원한다.

47. 주를 아는 데 힘써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힘써라. 알았으면, 변치 말고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라. 구원과 휴거의 가치를 상실하지 말고, 매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구원도 휴거도 사랑의 삶도 죽는다.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노래>를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읊을 줄 알아야 된다.

2. <시>를 지을 줄 알아야 되고 읊을 줄 알아야 된다.

3. 옛날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기도’로 병이 낫기를 원했다.

4. 의학이 발달되니, 이제는 ‘의학’으로 치료되는 세계가 되었다.

5. 예수님 때,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거기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 이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이었다.

6. 이제 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는 자들’은 점점 없어지고, ‘병원을 찾는 자들’이 구름을 이루었다.

7. 시대가 발달됨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해결하게 하셨다.

8. 자녀들이 크면, 부모가 안 해 줘도 스스로 하니, 부모가 편해진다.
9. 이와 같이 시대와 종교인들이 발달되니, 그만큼 하나님이 편해지셨다.
10. 농부들도 곡식이 크면, 그만큼 편해진다.
11. 개인도 자신이 크면, 그만큼 편해진다.
12. 개인이 어서 차원 높여 크면, 그만큼 천국의 삶이 되니 자유롭고 편해진다.
13. 성장하면 자기 할 일을 책임지고 하니, 편해진다.
14.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실상 ‘육’도 제일 편하게 살고, ‘영’은 영원까지 편해진다.
15. <인생이 편해지는 답>이란, ‘온전히 사는 삶’이다.
16. 섭리인들도 커야, 지도자가 편해진다.
17. 섭리인 모두가 더 크고 성장하고 차원을 높이면, 주가 편해진다.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일이 밀리면 잡을 수가 없듯이, 그때그때 해 줄 것이 있는데 밀리면 못 해 주고 못 잡는다.
2. <육신>을 가지고 ‘신의 몸’이 되어 ‘신과 같이 사는 삶’은 신적인 보람이며 아름다운 맛이다.
3. <신>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살 때’ 아름답고 신비하고 기쁜 맛이 있다.
4. <사람의 육신>이 ‘신의 몸이 되어 사는 삶’, <신>이 ‘인간의 육신을 쓰고 사는 삶’은 아름다움이 크고 신비한 삶이다.
5. <신>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오직 <삼위의 몸>이 되어 <삼위>와 같이 살아야 ‘육’도 ‘영’도 영원한 보람이며 사랑이다. 신비한 휴거의 삶이다.
6. <우상과 같이 사는 자들>은 모두 ‘속는 자들’이다. 우상을 빙자하여 ‘사탄과 악한 영’이 대상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그 영들은 사망 지옥에 있다.
7. <하나님이 보낸 자>가 ‘시대의 보이는 신’이다. 삼위일체는 ‘그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고로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사는 삶’이 영원하고 신비하며, 그 맛도 이상적이다. 이 맛은 ‘자기와 전혀 다른 극의 존재, 신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의 맛’이다.
8. <돌>에 <나무>가 붙어살 때, ‘두 존재가 하나 되어 사는 아름답고 신비한 맛’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신>과 하나 되어 그 뜻대로 사는 삶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상적인 맛’이다.
9. <돌>과 질이 다른 <물>이 돌 위로 흘러가면서 존재할 때, 아름답고 신비한 맛이다.
10. 같은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와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이상적인 존재의 맛을 내게 된다.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인간’이 일체 되어 살 때> 최고로 아름답고 신비한 삶의 맛

을 내고, 사랑의 맛을 낸다. 이것은 영원한 맛이다.

11. <색다른 존재와 접목시킬 때> 세 가지 이상적인 맛이 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세계가 된다.

12. <돌>만 있는 곳은 ‘한 가지 아름다움과 신비의 맛’이다. 여기에 다른 존재인 <나무>를 돌 위나 옆에 심으면, ‘세 가지 맛’이 나온다. 첫째, 돌의 맛, 둘째, 나무의 맛, 셋째, 돌과 나무를 일체 시켰을 때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맛이다. <모양과 형상과 질이 다른 것을 일체> 시키면 조화롭고 아름답고 신비한 맛이 나듯, <인간이 신과 일체> 되면 다른 맛이 나오면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삶이 된다.

13. <남자>와 <여자>는 ‘다른 질’이다. 하나 되면 개성의 맛도 나오고, 일체 된 맛도 나오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맛도 나온다.

14. 건물도 두 개가 서 있는데, 두 개 다 <똑같은 양식>이면 ‘하나의 맛’만 난다. 각각 <완전히 다른 형상과 모양>이면, 두 존재가 ‘색다른 이미지’를 주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맛’을 준다.

15. 같은 존재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조화>가 아니고 <반복>이다. 이는 ‘한 가지 효과’를 내고 ‘한 가지 맛’을 낼 뿐이다.

16. 똑같은 배 두 개를 갖다 놓기보다, <배>와 <사과> 두 가지를 갖다 놓으면 ‘두 가지 맛’이 난다.

17. 다른 존재, 다른 형상과 모양은 ‘조화의 맛’을 낸다. 돌, 나무, 물이다.

18. 월명동은 ‘돌, 나무, 물, 운동장, 잔디밭, 건물, 산, 땅, 등산로, 산책로’ 등 각각 다른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맛을 낸다. 산 형상도, 지역 형상도 각각 다른 형상과 모양이다.

19. 월명동은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명자가 태어난 곳이며, 신화의 장소, 전설의 장소이며, 명승지이다. 그리고 반월 형상, 백보좌 형상, 생명의 탄생을 상징하는 여자 자궁 형상, 자미원 형상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처음 지(地)와 나중 지(地)이며, 성자가 다시 오신 곳이며, 성자가 떠나신 곳이다. 종교 역사의 오메가 지역이다. 성약역사의 터다.

20. 집도 ‘똑같은 모양의 두 집’을 지은 것보다 ‘극으로 다른 모양의 두 집’을 지었을 때, 더 이상적이고 조화롭고 돋보인다.

21. 나무도 ‘똑같은 나무 두 주’보다 ‘다른 종류의 나무 두 주’를 심으면, 더 이상적이다.

22. 말씀도 ‘같은 말씀을 두 시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차원의 말씀을 두 시간 전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육적 말씀>을 한 시간 하고, <영적 말씀>을 한 시간 하면, ‘육적인 것’도 더 배우고 알고 깨닫고 ‘영적인 것’도 깨닫는다.

23. 정장을 입을 때도 ‘콤비’로 입으면, 더 시선을 끈다.

24. <한 가지 색>을 거듭하기보다, <두 가지 색>을 매치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25. 넓히고 세우고, 들어가고 나오고, 높고 낮은 것, 이것이 <조화>이고, <예술>이고, <신비함>이다.

26. <하나님의 예술>은 ‘조화’다. ‘신비한 맛’이다. 넓고 좁고, 높고 낮고, 다양한 모양과 형상이다.

27. 말씀도 조화롭게 전해라. 넓고 좁게, 높고 낮게, 웅장하고 아기자기하게, 엄하고 곱게 ‘노래’같이 전해라. 그러면 ‘신비한 맛’이 난다.

28. <하나님의 구상>은 ‘조화의 현상’이다.

29. <자기 식>은 해 놓으면 ‘자기 향기’를 풍겨서, 모두 보고 말이 나온다.
30. 집도, 길도, 작품도 ‘하나님의 구상대로’다.
31. <월명동 자연성전>도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다. 그래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안 되면, 다시 한다.
32. <교회 운영>도 ‘하나님의 구상대로’다. 그러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못 하면, 그 정도에서 머문다.
33. <교회 운영>도, <자기를 만드는 것>도 월명동을 만들듯 하여라.
34. <자기 수준, 자기 지능>대로 하면 모두 불안해하고 따르지 않는다.
35. 만사의 어떤 일이든 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어라.
36. 월명동도, 교회 운영도, 생명 관리도, 자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구상’대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이룬 일’이라서 볼 것도 없고 거기서 끝난다.
37. 말씀이 나갔으니, 기도하며 깨닫고 말씀대로 ‘하나님과 주’와 하나 되어 해라.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저마다 ‘할 일’을 못 하니, ‘존재’를 못 하게 된다.
2. 저마다 ‘할 일’을 하면, ‘딴 세상 삶’이다.
3. <뇌>는 발달시키면, 무한하게 발달된다.
4. <생각>도, <행함>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무한하게 발달된다.
5. 생각한 것을 만들고 실천하면,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
6. 무조건 ‘해야 될 일을 행하기’다. 행해야 행한 데서 존재한다.
7.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존재’한다.
8. <생각한 자>는 ‘생각에서 존재’하고, <행한 자>는 ‘실체에서 존재’한다.
9. 천국도 행하여서 ‘실체’를 얻고 가게 된다.
10. <이론>은 ‘설계’다.
11. <행하기>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실체’가 된다.
12. <악인>은 ‘자기 계획’을 행하다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13.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스스로 행하니 어렵고 힘들고 되지도 않고 고통만 받는다.

14. 사람들은 힘드니, 편하려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 <삶>은 쉽지만, <얻는 것>은 단순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간다.
15. 힘들어도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고생돼도 <행함>을 온전하게 하고 살아가야 마음도 육도 ‘근본적’으로 편하게 산다.
16. 힘들다고 길을 ‘임시’로 닦아 놓고 살면, 항상 이동과 교통이 힘들다.
17. 산에 길 닦는 것이 힘들다고 안 닦아 놓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짐을 지고 다니니, 닦을 때까지 힘들게 다녔다. <신앙의 할 일>도 안 하면 편하다 한다. 그러나 ‘안 해서 편한 것’은 작고, ‘안 해서 고생되는 것’은 10배나 더 된다.
18. 길을 안 닦아 놓으면 ‘편하게 발 딛고 다니는 것’을 연구하고 그쪽으로 발달시키지만, 길을 안 닦았으니 편한 것은 한계가 있다. 신앙도 그러하다. 편하게 살려고 <할 일>을 안 하며 계속 ‘편하게 사는 것’만 연구하며 행하지만, 결국 <할 일>을 안 했기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편하게 살아지지 않는다.
19. 원시인들은 집을 임시로 지어 놓고, 길도 소로 길을 닦아 놓고 그 길로 왕래하며 산다. 힘드니까 편하려고 쉽게 만들어 놔는데, 결국 한계가 와서 그 집에서 살기도 힘들고, 그 길로 왕래하기도 힘들다. 또 샘도 깊이 파려면 힘드니 깨작거리며 파 놓고, 흐르는 물을 떠다 먹고 산다. 결국 물이 오염되어 병들고 못 견딘다. 길도 좁으니, 물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 조금 더 연구해서 물동이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고, 어떤 족속은 이마가 단단하니 머리에 끈을 매서 물동이를 옮기며 다닌다. 그렇게 해도 한계가 있다. 발달된 자들은 길을 넓게 닦고, 차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도 사람도 싣고 다닌다. 발달된 자들이 보면, 원시인들은 너무 고생하고 산다. 임시로 해 놓고 사니, 아무리 편히 살려고 연구해도 한계가 있다. <신앙>도 그러하고, <만사>도 그러하다. 온전하게 만들고 행해라. 온전히 깊이 기도하고, 온전히 전도하고, 온전히 준비하여 교회도 사고, 아예 만들어서 살아야 편하다.
20.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어도 ‘임시’로 믿고, 진리도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우상을 섬기듯 ‘샤머니즘 신앙’을 하면 <임시적 신앙, 원시적 신앙>이라서 아무리 편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육도 영도 고생이 더 심하다. - 그러다가 결국 ‘소멸되는 영’이 되어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간다.
21. 온전히 안 하고는 온전히 못 산다.
22. 월명동도 <온전히 만들어 놓은 곳>만 편하다. 그곳은 노력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다녀도 편하다. <임시로 한 것들>은 모두 다 없었다. 온전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편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모두 힘들어도 온전히 해야 된다.
23. <3.16 휴거기념관 (성자 사랑의 집)>을 보아라. 예전에는 그 자리에 ‘임시로 지은 건물, 천막으로 된 곳’이 있었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살았다. 그때 그곳에서 편히 살려고 노력했으나, 항상 칼잡을 자듯 하고 한계를 못 넘고 고생하며 살았다. 이제 <건물>을 완전히 지어 놓으니,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의자가 있어서 그냥 편히 앉으면 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온전히 해 놓아라. 그러면 매일 편하게 산다.
24. 예전에 <월명동으로 오는 길을 임시로 닦아 놓고 살 때>는 먼지가 안 나게 하려고 차가 살살 기어 다녔다. 물을 뿌리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었다. 온전히 닦아 놓으니, 노력을 안 해도 편하다. 저마다 <신앙의 길>도 아예 온전히 행하여 닦아 버려라. <주>는 ‘온전히 닦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행하는 자>는 ‘온전히 닦은 길’과 ‘진리’로 행하게 된다.
25. <진리를 벗어난 자들>은 과거 섭리사에서 배운 것을 부분적으로 쓰면서 육도 영도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나, ‘소로 길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원시인적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가면서 쇠잔해지고, 영도 지금 사망에 묻혀 살고 있다.

26. 힘들어도 아예 ‘자연성전’을 만들어서 쓰고 ‘건물’을 지어서 쓰면, 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게 된다.
27. 축구도, 수영도, 배구도, 달리기도 힘드니까 편하려고 조금 배우고 하면, 아무리 편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온전히 배우고 하면 힘 안 들이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설교도 그러하고, 신앙의 각종 일도 그러하다.
28. 조직도, 구상도, 신앙의 삶도 모두 <머리>가 하고, <지체>가 따라서 해야 지체들이 힘이 안 든다. <머리가 할 일>인데, 편하려고 <지체>에게 시키면 더 힘들다. 고로 성령이 “이제는 머리가 할 일, 머리가 해라.” 하셨다.
29. 아기가 배고파서 젖 달라고 하는데, ‘처녀’가 젖을 준다고 젖이 나오나.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젖야 된다. <머리>이기 때문이다.
30. 힘들어도 <머리>가 해야 <전체 지체>가 힘들지 않다.
31. 힘들어도 온전히 배우고 행해 버려야 편하다.
32. 온전히 행하는 자는 승리한다.
33.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데 뛰고 달리는 것이 힘들다고 안 하고, 대신 다른 것을 연구한다고 건강해지겠느냐. 복잡하고 한계가 있다. 힘들어도 뛰고 달리니, 다리를 주무르며 노력할 필요가 없다. <신앙>도 그러하다.
34. 방에 밀린 서류가 짹 차 있는데, 그냥 치운다고 해결되겠느냐. 서류를 한 장씩 다 보고 정리해야, 보내든지 소각을 하든지 한다.
35. 선생의 방에 밀린 서류들이 짹 차 있었다. 다 보면서 처리하기 힘들니, 계속 연구하면서 좁은 방에다 서류들을 쌓아서 넓게 만들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한계를 못 벗어나고, 방은 점점 좁아졌다. 결국 새우잠을 자거나 앉아서 자다가,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상-중-하로 서류를 정리하고, 처리할 것들은 처리하고, 보낼 것들은 보내고 소각하여 온전히 하니, 노력하지 않아도 즉시 편했다. <신앙의 할 일>도 그러하다. 편하려고 온전히 안 하면 결국 더 불편하고 고통과 고생이 쌓여서, 그 때는 더 존재하지 못한다.
36. 편하려고 방을 안 치우고 어지럽게 해 놓고, 정원을 안 치우고 잔뜩 어지럽혀 놓고, 편하게 살려고 이리저리 발을 디디며 연구하면서 산다. 모두 치우고 정돈하려니 힘들니까, 어떻게 하면 피해서 넘어 다닐까 연구하며 새 길을 내고 다닌다. 머리가 더 아프다. <신앙의 할 일>도 안 하면, 이러하다.
37. 휴거 시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휴거>인데, 힘들다고 온전히 배우지 않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과 희망과 사랑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 힘들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키신 일, 선포하신 일’을 해야 최고로 편하게 되고, 땅에서 ‘휴거 천국’이 이루어진다.
38. 하늘 신부가 어정쩡하게 되어서 편하게 살 수 없다. 온전하게 돼야 편하다.
39. 힘들어도 자꾸 고치면서 온전히 해야 <신앙의 삶>이 편하고 기쁘고 희망차다.
40. 월명동 운동장에 돌들을 늘어놓으면, 아무리 편하게 다니려 해도 근본적으로 편하지 않다. 힘들어도 그 돌들을 쌓아서 온전히 만드니, 노력하지 않아도 운동장을 편하게 다니게 된다. 각자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41. 생명을 해하고 죽이려 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자들은 망신을 당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그 죄로 인해 죽게 된다.
42.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힘들어도 온전히 행해라. 그래야 그 행위대로 편안히 살고, 편안한 곳에 거하게 된다. 삼위도, 주도, 진리도 온전히 알지 않고 믿지 않고서는 육도 영도 편히 살 수 없고, 결국 진리에 굴주리고 희망이 없어서

고생과 고통으로 살게 된다. 이로써 ‘각자 감춰진 행위’가 드러난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고통’으로 받는 것이다.

43. 고집·교만·무지·기존 관념은 모두 온전치 못한 연고로 결국 그것들이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44. <온전히 행한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이 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휴거’를 이루어 ‘시대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

45. 안 하고는 아무리 편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못 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 힘들어도 하면, 온전해져서 노력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게 된다.

46. <정상>이 ‘정상’이다. <정상>으로 해야 ‘정상’으로 된다.

47. <비진리, 비정상>은 결단코 ‘비정상’으로 끝난다.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48. 힘들어도 ‘초가집’을 헐고 ‘새 집’을 짓고 살면 편하다.

49. <헌 집>에서는 아무리 편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근본의 편안함’이 없다.

50. <좁은 교회>를 편하게 쓰려고 이리저리 뜯어고치면서 인테리어를 해도 결방살이, 전세살이라서 ‘근본의 편안함’이 없다. 원하는 교회를 사고 지어야, 그제야 온전하게 편하다.

51. 건강 세계도 그러하다. 병을 ‘임시’로 다루면서 안 아프려고 진통제나 먹으면 ‘근본’은 안 편하다. 병을 ‘온전히 고쳐 버려야’ 그제야 온전히 편하게 된다. <신앙의 병>도 다 고쳐야 온전히 편하다.

52. 하늘나라 <황금성 천국>은 온전히 해 놓아서 온전히 편하다. <땅>에서 ‘육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황금성 천국에 자기 휴거 집’을 지어서 가게 된다.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들어 주신다.

53. 월명동 약수샘을 온전히 만들지 않았을 때는 많이 퍼 마시면, 구정물이 나오고 불편했다. 샘을 온전히 만들어 놓으니, 구정물이 안 나오게 노력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퍼 마셔도 편하다.

54. <온전히 만들지 못한 것들>을 온전히 만들어라. 그러면 평생 편하게 쓰고 산다.

55. 편하려고 목욕을 안 하고, 몸도 머리도 간지럽고 껍뻑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손톱을 길러서 등을 긁고 머리를 긁고, 참는 것을 연구해서 일주일, 2주일, 한 달 동안 참는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쪽으로 발달시켜도 효과가 없고 계속 괴로운 고통이다. 결국 목욕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 편하다. 깨끗하게 씻으면, 손톱을 깎아 없애도 등과 머리를 긁을 필요가 없으니 편하다. <신앙>도 힘들다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할 일’을 안 하고 사는 자들은 결국 못 견디다. 결국 목욕하듯 ‘죄를 회개’하고 ‘자기 할 일’을 해야 근본이 해결된다. 모두 할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니, 힘들어도 행하여라.

56. 스키 배우기 힘들다고 대강 배우고,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면서 안 뒹굴려고 눈 바닥에서 갇은 노력과 연구를 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해도 뒹굴어 다치고 죽기도 한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행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행해라.

57. 편하려고 ‘할 일’까지 안 하면, 더 고생이고 더 고통이다.

58. <지옥과 사망으로 간 자들>은 세상에서 편히 살려고 ‘육’으로만 살고 ‘자기 할 일’만 했다. 영에 대해 배우지 않고, 영을 위해 살지 않고, 힘들다고 새벽기도도 안 하고, 평소에 삼위와 주와 대화하지 않고, 힘들다고 의를 행하지 않

고, 이성 지키기 힘들다고 안 지킨 자들이 지옥과 사망으로 갔다.

59. 월명명도 돈도 들고 힘들다고 옛날 그대로 뒀다면, 편하려고 가지도 않고 잡초 골짜기 판 세상이 됐을 것이다. 힘들어도 행해라. <자기 마음>도 <행실>도 월명동처럼 개발하지 않으면, ‘잡초 골짜기’가 된다.

60. <행하고 수고한 자들>만 힘들게 벌어서 월명동을 개발하고 일했다는 것을 안다. 그만큼 귀히, 편히 써야 된다. 해 놓고, 100배 귀히 쓰기다.

61. <평화를 깨부수는 자들>은 힘들다고 아벨들을 죽이고, 아벨들의 것을 뺏어 먹으려 한다. 그러나 결국은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후에 멸망을 당하여 소멸된다. <신앙의 가인들>도 힘들다고 자기들 편하게 의인들의 것을 뺏지만, 결국은 한계를 맞고 그 악한 행위대로 다 받고 스스로 소멸된다.

62. 월명동 산길도 힘들어도 닦아 냈다. 결국 섭리인 모두 편하게 다니게 됐다. <길 닦기, 마음 닦기>다. 이 두 가지는 힘들어도 닦아 놓으면, 평생 편하다. 닦아 본 자만 알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하며 쓴다.

63. 힘들다고 편안하고자 생명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 더 힘든 일이 생겨서 10배나 더 고통을 받는다. 힘들어도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관리해 줘야 된다. 그로 인해 편안한 삶이 온다.

64. <한쪽>만 행한다고 되지 않는다. <머리>도, <지체>도 행해야 된다.

65. <목적>을 위해 좌우로 틀어 행하시는 삼위이시다.

66. (하나님) <머리>는 다 해야 된다.

67. <기도로 할 일>은 ‘기도’로 한다.

68. 할 때, 모두 같이 해라. <머리>가 할 때 <지체들>도 행하여라.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너의 희망이 어디서 올까? 기다리기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사람들이 희망을 주어 받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네’가 희망을 만들어라. 곧 ‘차원 높여 온전히 사는 것’이다.

2. 차원 높여 살면, 그 <차원 높은 삶>이 곧 ‘희망’이 된다.

3. 누가 너의 희망이 되어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때가 되면 해 준다. 그 전에 ‘네가 희망을 얻는 길’이 있다. 차원 높여 살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주는 희망과 기쁨이 있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 때가 되면 주신다. 그 전에 다른 희망을 얻고 싶으나, 그러면 ‘차원을 높이는 온전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 자체도 희망이고, 그로 인해 희망과 기쁨의 일이 온다.

5. 희망에 불타서 기뻐하다가도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다. 이때는 ‘왜 이러지?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떠나셨나?’ 해진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잊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다. <생각>에서 잊으면, <기쁨>도 사라진다.

6. 발에 감춰진 보화를 하늘로부터 받고 매일 그것을 이야기하며 기뻐하며 살다가도, 그것을 잊으면 금세 기쁨도 희망도 사라진다.

7.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물을 빼면 금방 물의 느낌이 사라지듯, <생각>에서 ‘기뻐할 것’을 잊으

면, 기쁨도 희망도 같이 사라진다. - <뇌>는 ‘빈 그릇’이 되면 ‘맛’을 못 느낀다.

8. 가만히 있으면 얻지를 못하니, 기쁘지 않다. 생각하면서 행해야! 그로 인해 기쁘다.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온다.

9. 생각이든 행위든 중지하면, 기쁨도 희망도 중지된다.

10. 꿈을 꾸고도 ‘생각이 안 나는 꿈’이 있다. 육으로 연결되어 생각하다가 ‘육이 잊었기 때문’이다. 혼이나 영은 잊지 않는다.

11. 꾸다 마는 꿈은 없다. 혼은 늘 꿈 세계를 다니면서 연속해서 본다. 육이 연결되어 느끼고 기억하다가도 잊어버리고, 잊지 않은 것만 기억나는 것이다.

12. 육신이 하루 종일 행했어도 밤에 생각하면 머리에 기억나는 것만 기억나듯, 혼이 밤새 꿈에서 보고 듣고 행했어도 육이 기억나는 것만 기억난다. 고로 어느 때는 <기억나는 것>만 ‘꿈 쉼 것’으로 안다. 혼은 혼계, 꿈의 세계에서 계속 보고 다닌다.

13. 혼이 혼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행하는 ‘생활의 꿈’도 있고, 하나님과 성령이 보여 주시는 ‘예시와 계시의 꿈’도 있다.

14. 꿈을 깨닫고 보면, ‘생시에 육이 생활한 것들이나 생활할 것들’이 많다.

15. 꿈보다 ‘현실’이다. <꿈>은 ‘푸짐’해도 <현실>에는 ‘특별한 것’이 없기도 하고, <꿈>은 ‘보통’인데 <현실>에는 ‘엄청난 것’도 있다. 역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같이 ‘목적’을 두고 꿈을 주셔야, 그것이 그리도 크고 엄청나다.

16. 존재해도 안 만들면, 무용지물이다. 만들어도 존재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무용지물이다.

17. 존재해도 그것이 기능을 하게 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존재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하는 자>와 <그 것을 기능하게 하여 쓰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18. 기능을 안 하면,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다.

19. 사람의 뇌, 생각, 몸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살면, 무의미하게 살다가 끝난다.

20.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 목적이 이루어진다. 열나서 땀 날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때가 되면 근육이 커 오른다. 가령 300회를 해야 근육이 커 오른다고 하자. 그런데 250번 하고 힘들다고 끝내고, 며칠 있다가 힘 생기고 다시 하면 근육이 안 크다. 결국 목적을 못 이룬다. <신앙>도 이와 같다. <목적을 두고 하는 만사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다. 단계별로 쉬었다가 할 일도 있지만, ‘할 때 한 번에 밀고 나가야 될 일’도 있다.

21. 300미터 높이의 산이 있다 하자. 250미터까지 오르다가 힘들다고 내려왔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힘이 생겼을 때 다시 나가서 올랐다. 그러나 역시 250미터까지 오르다가 힘들다고 내려왔다. 계속 이렇게 하면, 열 번을 반복해서 해도 정상에 못 오른다. 할 때 해야 정상에 오른다.

22. <운동>도 매일 안 쉬고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23. 땀 날만 한데 그만 두면, 목적을 못 이룬다.

24. 운동도 확 많이 하고 쉬었다가, 또 많이 하고 쉬었다 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 반만 하더라도 ‘매일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그동안 한 것이 표가 나서 근육이 오르기 시작한다. <신앙>도 할 때는

많이 열심히 했다가 안 하고, 또 확 열심히 했다가 안 하면 별 효과가 없다.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된다.

25. <휴거>도 '꾸준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26. 음식을 많이 먹다가 한동안 안 먹고 또 많이 먹다가 안 먹다 하면, <체중 조절>이 안 된다. - <신앙>도 그러하다.

27. 목적지에 도착할 시간을 정해 놓고 길을 갈 때도 '빨리 갔다가 쉬었다가, 또 빨리 갔다가 쉬었다 하는 사람'보다 '보통으로 걸더라도 꾸준히 걸어간 사람'이 더 빨리 목적지에 가게 된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28. 숨 가쁘게 뛰다가 지쳐서 쉬면, 그 시간이 순간 엄청나게 지나간다. 결국 '꾸준히 걷는 자'만큼 못 간다.

29. 자료도 '꾸준히' 구해야 많이 구하게 된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꾸준히 구하는 것'이 '가만히 있다가 순간 열 내서 하는 것'보다 많이 구한다.

30. 깨작거리면 큰 일을 못 한다. <운동>도 깨작거리면 제대로 안 된다. 팔, 다리, 허리 펴기 운동을 할 때도 '조금씩' 오그렸다 펴면서 깨작거리면, 별 효과가 없다. '쭉' 편만큼 운동이 되고 수축됐던 것이 펴진다. <신앙>도 그러하다. 기도, 찬양, 예술, 전도, 관리, 강의 등 신앙의 일도 깨작거리면서 하면 그만큼 된다. 팔, 다리, 허리를 100% 쭉쭉 오그렸다 펴는 운동을 해야 몸이 흐르는 물같이 부드럽게 되듯이, <신앙>도 100% 확실하게 쭉쭉 펴면서 해야 육의 행동도, 생각도, 혼도, 영도 제대로 된다.

31. 구부러진 옛날 길을 쭉~ 펴서 고속도로와 철길을 내듯이, <신앙>도 그리해라. - 교통수단이 발달돼야 교통이 잘 되듯, <신앙 길>을 잘 내야 '하늘과의 교통'이 잘된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깨작거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삼위를 닦아서 모두 멋있게 해라.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유대 종교인들은 <율법>을 칼같이 무섭게 지키며,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메시아>가 왔을 때 맞이하지 못했다.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메시아>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불신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교만으로 대했다. 결국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실패한 자들이 되었다. <구약 유대 종교인들의 지혜>를 다 합쳐도 <메시아 예수님의 한 마디>를 따라가지 못했다.

2. <최고로 지혜로운 자>를 <최고로 미련한 자>가 배척한다. 옛날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3. 이 시대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칼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의 예언이 자기 때에 이루어지려나 하면서 몰두해서 성경을 지켰다. 지구 세상에서 <최고 중심 종교>로서 <메시아>를 최고로 기다리며 행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시니, 세상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괴롭히고 반대했다. <자신들이 최고로 기다린 목적>을 이루는 역사인데, 최고로 불신하고 막은 것이다. 고로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실패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 사고와 생각을 중심하여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었기에 <새 시대>를 맞고 <기다리는 자>를 맞는 데 실패한 것이다.

4. 항상 <구시대가 새 시대를 맞는 데 실패한 원인>은 '성경'을 제대로 못 풀었기 때문이다. 지도자들을 따라서 따르는 자들도 그 길로 갔다. 하나님은 <새로운 2세들>에게 '시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6000년 동안 이루어고 하셨던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이루셨다.

5. 세상에서 <모르는 자>는 실패하고 망한다. <육>도 '사망권의 삶'을 사니, 그 <영>도 '생명의 형체'로 변화되지 못하여 '사망'에 처해 살게 된다.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행한 것>은 기뻐하며 즐겨 행해도 자기 삶을 망가지게 한다.
2. <생각>을 잘해라. 생각을 잘하고 행하면 ‘복’이고, 잘못하고 행하면 ‘화’다.
3. 항상 ‘삼위와 생각 일체’ 되어 행해라. 그러면 사람이지만, ‘신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4.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놀지 말고 생각과 함께 행하여라.
5.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바로 무기력해지고 둔감해진다.
6. <생각>을 예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 바로 총명해진다. 총명하신 전능자 삼위일체와 하나 되기 위해 수시로 삼위를 부르고 찾고 간구하여라.
7. (초안) 낮이나 칼을 안 갈고 쓰기만 하면 금방 무뎌지고, 갈면 금방 예리해진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도 그러하다.
8. <기도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갈고 닦고 예리하게 하는 것이다.
9. 연장을 예리하게 만들면 일하기 쉽듯이, 인생들도 <생각>을 갈고 닦으면 살아가기 쉽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10. 사망권 세계에서 살 때는 그 삶이 좋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거기서 나와 생명권으로 와서 보면 딴 세상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해진다.
11. (초안)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서 봐야 사망권과 생명권의 차이를 알게 된다.
12. 소경이 눈을 뜨고 살아 봐야 과거에 얼마나 애탯는지, 눈 뜨고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
13. 하나님도 주도 제대로 믿고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해 보지 않으면, 그러지 못하고 살았던 때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4. 천국에서 살아 보지 않으면, 천국이 지옥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5. 겪어 보고 먹어 봐야 알게 된다.
16. 늙어 보지 않으면, 그 나이 때의 사정을 모른다.
17. 아파 봐야 아픈 자의 심정을 알고, 건강한 자로서 돕고 치료해 주고 신경 써 주고 기도도 해 주게 된다.
18. 아픈 자는 힘이 없어서 기도도 못 하고 운동도 못 한다. 건강한 자가 대신 해 줘야 된다. ‘육’도, ‘영의 신앙’도 그러하다.
19. 집을 진 자는 못 뛴다. ‘육의 집’도, ‘죄의 집’도 그러하다. 집을 벗어나야 뛴다. 회개하면 ‘빈 몸’이 되어 날아가는데, 왜 안 하나. 회개하지 않으니 ‘사탄’까지 붙어서 산다. 고로 그리도 무겁다.
20.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행하신다.
2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이라서 머릿속에 세상만사 모든 일들을 복잡하게 다 기억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 순간 생각하고 행한다. 항상 <생각>을 깨끗하게 시원하게 총명하게 하고 산다. 너희도 세상을 살

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지만,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 잊지 않고 행하면 된다.” 하셨다.

22. 늡으면 뇌세포가 죽으니 <보는 것>이 끝나면 희미해져서 잊고, <듣는 소리>가 끝나면 잊게 된다. - 고로 즉시 기록하여 역사에 남기는 것이다.

23. 하나님께서 “화목해라.” 하셨다. 이 말씀을 행사처럼 한 번 행하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매일’ 행해라. 그래야 각 교회·가정·개인에게 ‘화목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서 거기서 씻고 닦고 화목하게 산다.

24. 자기가 기도하고 좋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 그것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감격하면서 삼위와 주와 대화하면서 쓴다. 고로 ‘좋은 것’을 찾아라. 구해라. 힘들게 찾다가 얻어야 ‘보화’같이 귀히 보고 대하며 산다.

25. 인생은 ‘정점’까지 갈수록 꽃같이 피어 가고, ‘정점’이 지나서부터는 꽃같이 시들어 간다.

<2016년 11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의 차원>은 많다.

2. 잠잘 때와 같은 생각, 무의식 상태의 생각, 보통 생각, 보통은 넘은 생각, 생생한 생각, 최첨단 생각, 신의 생각이 다.

3. <생각의 차원>대로 살아간다.

4. <최고로 생각할 때>가 최고의 기회다. 그때 행해야 된다.

5. <신의 생각의 때>를 만들어서 그때 행해라.

6. 어떤 차원의 생각으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행한 것이 표가 나 있다.

7. <핵>은 ‘가야 할 길’과 같고, <나머지>는 ‘좌우의 곁길, 옆 배경’과 같다. <핵>만 알면 된다.

8. 꿈도 <핵>만 기억난다. <핵>이 ‘핵심을 계시한 길’과 같고, <나머지>는 ‘배경’과 같다.

9. <생각>도 돌이나 철같이 강한 생각이 있고, 흙 같은 생각, 물 같은 생각도 있다. <생각>은 ‘생활’과 같이 이루어진다.

10. 무의식 상태의 생각같이 생활도 그런 차원이 있다. <생각>대로 ‘육계의 육의 행실’이 형성되어 간다.

11. <생각>이 총명하고 명철해야 <행실>도 그러하다.

12. 육계나 영계나 ‘생각 실상의 삶’이다. <생각>대로 ‘삶’이 형성된다.

13.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고 행해라.

14. <생각>이 확실해야 된다. <생각>이 흐리면, 마치 <눈>을 흐리게 뜨고 보는 것과 같아서 <삶>도 흐리다.

15. 흐리게 보고 흐리게 생각하고 흐리게 행하는 단계는 ‘잠이 오는 단계, 무의식 단계의 삶’이다. 이는 마치 부분적으로 알듯이, 생각도 행위도 부분적으로 하고 사는 삶이다.

16. 확실한 생각, 확실한 행위다.

17. 구시대 기성같이 흐리멍덩하게 알고 사니, <재림>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고 기다린다. 고로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산다. 고로 '육계의 삶'도, '영계의 영'도 그렇게 형성된다.
18.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육계'도 '영계'도 확실하다.
19. <육계의 삶>이 흐리멍덩하면, <혼계, 영계>도 흐리멍덩한 차원이다.
20.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완전한 단계의 삶'이 된다.
21. <생각>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육과 영'이 되기도 하고, '생명의 육과 영'이 되기도 한다.
22. <생각>이 '생명'이다.
23. <육신>은 '하나의 배경'이고, <생각>은 '자기가 사는 집'과 같이 '핵'이다.
24. <생각>이 항상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있어야 한다.
25. 섭리사를 벗어난 자들은 '무의식 속'에 살고 있다. '선잠에 들어서 졸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거기서 벗어나야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이 뒤바뀌어, 그제야 올바르게 깨닫는다.
26. 온전한 곳만 온전하다. 강이 흐르다가 쪼개져서 강물을 벗어나면 개울이 되고, 물이 흐르다가 마르고 끝난다.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벗어나면 그러하다.
27. 절대로 <하나님 주관권의 삶>을 벗어나면, '벗어난 주관권에서 사는 삶'이다.
28. 산에서 <길>을 벗어나면, 바로 '암벽'이며 '숲속'이다.
29. <시대 하나님의 생명길>을 벗어나면, 바로 '사망 어둠의 길'이다.
30. 사람도 <정신 차린 길>을 벗어나면, 바로 마음이 태만해지고 조는 '무의식 단계의 길'을 가게 된다.
31.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이 흐리고 별로이면 '별로인 삶'이 진행되는 것이다.
32. 할 일이 없으면 하루를 무의식 단계의 시간으로 보내고 해를 넘기듯이, <생각>도 '할 일'이 없으면 생각을 하기는 해도 그냥 시간을 보내 버린다.
33. <생각>이 자꾸 '할 일'을 만들어야지, 안 하면 '무의식 단계의 삶'이 된다. 이는 마치 '조는 삶'과 같다. 그 상태에서 계속 인생길을 운전하니, 사고 난다.
34. <생각>이 노니, <육>도 놀게 된다.
35. <생각>이 '주인'이다. <주인>이 노니, <일꾼들>도 논다.
36. <주인>이 양달에 앉아서 조니, <일꾼들>도 졸고 누워 있다. <생각>이 노니, <온 지체>가 같이 놀고 졸고 있다. 철 길 위에서 조는 격이다. 열차의 기적 소리가 날 때 일어나라. 졸고 있으니, 기적 소리가 사람의 경종 소리로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다.

37. <생각>에 따라서 행실도, 삶도, 혼도, 영도 좌우된다.

38.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생각’이다.

39. 시대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지옥에 가느냐, 천영계에 가느냐, 낙원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느냐가 좌우된다.

40. 흐리멍덩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꿈을 꾀 보아라. 흐리멍덩하게 잡꿈을 꾸고, 거기서 해매다 나온다.

41. 기도를 깊이 하고 확실히 생각하고 생활해 보아라. 그런 후에 꿈을 꾸면, 확실한 꿈이 꾀진다. <꿈>은 ‘삶의 실상’이다.

42. 못 했으면,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잘된다.

43. 낮에도 ‘눈에 불’을 켜고 ‘생각에 불’을 켜고 ‘생활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된다. <시대 말씀>은 ‘태양’ 같아도 <자기 생각>이 ‘흐리멍덩’하니, 태양 같은 시대 말씀을 가린다. - 확실한 생각, 확실한 실천이다.

44. 칼이 무디면 무엇이든 잘라지지 않듯이, <생각>이 무디고 무의식 상태이면 무딘 칼과 같아서 ‘자기 모순, 죄, 잘못된 삶’이 끊어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는다.

45.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그 말씀을 받고 행하면 ‘불의’를 자르고 ‘세상’을 자르고 ‘확실한 삶’이 이루어진다.

46. <생각>을 ‘칼날’같이 예리하게 세워라.

47. 왜 자기 잘못된 습관과 성격을 못 고치느냐. 칼이 무딘 것같이 <생각>이 무디니 자르지 못하는 것이다.

48. <시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예리한 칼’과 같아서, 자기중심의 생각, 말실수, 각종 모순들을 예리하게 깨닫고 즉시 자른다. 못 자르니 사탄이 끌고 가고, 사람들이 보고 즉시 알아챈다.

49. 지도자가 생각이 예리하지 않으니, 교인들이 보고 모두 안다. 마치 나이 먹은 노인의 눈같이 <생각>이 ‘흐리멍덩’하기 때문이다. 주의 잠언의 말씀을 보고 안 고치면, ‘눈이 밝은 자 = 생각이 또렷한 자’를 세운다.

50. <시대 말씀>을 받아도 ‘생각이 흐린 자, 행동이 흐린 자’는 못 한다. 고로 고친 후에 하게 해라.

51. 목회자가 ‘설교 한 가지’를 잘하면 그것은 돌아가지만 <전체>는 안 돌아간다. ‘관리와 교회 운영’을 잘해야 <전체>가 돌아간다.

52.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은 되지만, ‘전체를 잘하는 것’이 미약하다. 경영을 안 해 봐서 그러하다.

53. 주와 같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하니, 좁은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54. 목회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맡겼는데, 자기 혼자 하느라 정신이 없다. 자기의 정한 때가 온다. 다시는 안 시킨다.

55. 주께 목회하는 것을 놓고 물어라. 너희는 보고 느껴도 차원이 낮으니, 행하지 못해서 모른다. 행해야 근본을 안다.

56. 주의 잠언과 말씀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10대인데도 날고 기며 순회를 돌지 않느냐. 말씀을 깨닫고 근본을 알고 전해라.

57. 잘해야 잘된다.

58. 잘하는 것은 수십 단계다. 마치 '1~100까지의 차원'이다.

59. <설교하는 것>만 보고는 목회자들을 배치하지 않는다. <교회 운영하는 것>을 보고 한다.

60. <설교 한 번 잘하는 것>은 연습하면 누구나 한다. 지속적으로 잘해야 된다.

61. <운영 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잘한다.

62.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어, 보고들이 들어온다.

63. 어떤 지도자는 보고가 들어오면, 누가 보고했냐고 보고한 사람을 찾아다닌다. 이는 무지한 자요, 성령이 시킨 일을 거역하는 자요, 주를 거역하는 자다. 주가 보내서 보고하고, 성령이 보다가 안 되니 주께 보고하라고 한 것이다.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친 연고다. 결국 '교회 손해, 자신 손해, 주 손해'이니 고쳐야 된다. <휴거 때>라서 지도자들은 정말 잘해야 된다. 지도자 본인은 '자신의 모순'을 보지도 못하고 보고하지도 못한다. 좋게만 말하면, 하나님은 "속지 말아라." 하신다.

64.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점일획도 모순을 다 보신다.

65.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문제>가 정확해야 <정확한 답>이 나간다. 무의식으로 졸면서 행하지 말고, 진정으로 확실히 행해라.

66. 정기적인 보고를 안 하면, 자기중심의 목회가 된다. 목회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러하다.

67. 한 가지만 보고 목회하지 말아라. 목회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러하다.

68. <목회지>는 '목회자 자신의 생활 장소'가 아니다. 교회 전체를 살피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피고 도우며, 교인들을 알아야 목회한다. 설교만 해 주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 농사짓듯, 장사 하듯 해라. 앞으로 1년 동안 '설교를 잘하고 교회 운영을 잘하는 목회자'를 뽑는다. 그리고 '잘하는 자들'만 시킨다. 기도 시간에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깨닫고 고치고 차원 높여야 된다.

69. 모두 <생각>을 칼날같이 예리하게 해라. 그 생각으로 '자기 모순과 고칠 것들'을 잘라 내고 끊어 내라.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눈이 보는 대로 생각이 가서 '보는 것'을 생각하니, '앞에 생각하던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2. <생각>은 '눈'과 같다. <눈>이 봐야 보이듯, <생각>해야만 생각하게 된다.

3. 다른 것을 보기 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데리고 가야 잊지 않게 된다.

4. 다른 것을 보면 순간 '본 것'을 생각하니, '먼저 생각하던 것'을 잊게 된다.

5. 가령 '자기 아이'를 보다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느라 '자기 아이'를 생각에서 잊게 된다.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야 안 잊는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을 보거나 생각하더라도 '먼저 생각하던 것'을 생각으로 데리고 가야 안 잊는다.

6. <생각>은 일순간 왔다가 일순간 사라진다.

7. <몸>을 구부리고 있으면 답답하고 몸이 편하지 않듯이, <생각>을 구부리고 있으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편하지 않다.
8. <생각>을 괴롭게 하면 괴롭고, 기쁘게 하면 기쁘다.
9. <생각>이 스스로 기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0. <생각>을 실제로 희망 있게 해 줘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된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을 듣고 행함으로 '영원한 휴거의 기쁨과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생각해라. 그러면 '실제로 처한 일'이니, 생각이 기뻐하며 살 수 있다.
11. <생각>을 그냥 놔두면 잡념, 잡생각, 환상적 생각, 막연한 생각을 늘 하면서 무기력하게 된다. 고로 <생각>을 가지고 '전능자'를 부르고 찾고 앙망하며 '그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여라.
12. 저마다 <생각>을 그냥 놔두면, 아주 나쁘게 변해 버린다.
13. 자기가 개발하여 환경을 좋게 만들듯이, 또 존재물들을 사용하기 좋게 작품으로 만들듯이, <자기 생각>을 매일 좋게 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놀지 말아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꼭 '축복'을 주신다. <주>는 늘 '축복'을 주라고 기도한다.
14. <자기 생각>을 그냥 놔두면 별의별 나쁜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고, 큰일 나고, 자기 육신을 고통받게 하고, 별일과 나쁜 행동을 다 하게 한다. - <생각>을 무섭게 다스려라.
15. <생각>을 선하게 만들고, 삼위의 사랑 덩이로 귀하게 만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잘 만들어라. 그래야 <자기 육신>도 편히 살게 되고, <자기 영>도 영원히 편히 살게 된다.
16. 저마다 <자기 생각>을 무섭게 잡고 다스려라.
17. <생각>에서 '살인'도 하게 되고, '각종 죄'도 짓게 되고, '미움'도 일어나고, '해를 주게 하는 마음'도 생긴다. <생각>에서 '의'를 생각하고 무섭게 행해라.
18. <생각>하고 <육>으로 행하게 되니 - '나쁜 것, 불의'를 생각하고 행하려 하면 자기가 자기를 무섭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마귀를 쫓아내듯 쫓아내라.
19. <자기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고로 기도하며 <자기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께 맡겨라.
20. <운전대>를 그냥 놔두면 사고 나듯, <생각>을 그냥 놔두면 사고 난다. <운전대>를 잡고 차를 다스리듯, <자기 생각>도 무섭게 쥐고 다스려야 된다.
21. 성경에 하나님은 "인내하고 절제하며 참고, 생각을 다스려라."하셨다.
22. <불의, 불법의 생각들>은 '자기'가 무섭게 다스려야 된다. 안 하면, <자기 생각>이니 결국 <자기 육신>으로 불의를 행하여 사고를 내서 고통받게 되고, 일생 동안 그 대가를 받기도 하고, 자기 영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기도 한다.
23. 자기 뇌를 통해 <자기 생각>이 사탄에 의해 주관을 받아 '불의와 불법'을 생각하니, 매일 수시로 '사탄'을 무섭게 쫓아내야 된다. 멀해야 된다.

24. <자기 생각>이 ‘타인의 불의’나 ‘타인의 의롭지 못한 말과 행위’를 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이 행하게 되기도 하니, 무섭게 판단하고 자르고 없애야 된다.

25. 모르면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받아들이니, ‘선과 의’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

26. 돌, 나무, 절벽, 쓰레기, 땅, 길, 남자, 여자, 짐승, 먹는 것, 집, 빌딩 등을 확실히 알듯이 ‘선과 악’도 삶 속에서 확실히 알고 기어이 <선>을 행하고 <악>은 의의 행위로 멸해라.

27.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무섭다. 무서운 화가 닥친다. 고로 무섭게 다스려라. <생각>을 잘못하고 행한 자들은 감옥에서 사형수, 혹은 무기수가 되어 20~30년씩 살고 있다. 지상 지옥이다. 무섭다. <자기 생각>을 무섭게 다스리지 못해서 <육신>이 잘못되게 행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28. <생각>을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일체 시켜라. 그러면 ‘불의’를 무섭게 다스려 없애 주고, 온전히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29. <거칠고 무서운 환경>도 개발하면 ‘평지’가 되어 평온하게 된다. 거칠고 메마른 월명동 골짜기를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자기 생각>을 매일 만들어라.

30.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 마치 ‘무서운 험한 절벽 길’을 다 파내고 ‘평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마음 천국’이 된다.

31. <생각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도끼 같은 말씀’으로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을 끊고 자르고 다듬어서 선하게 만든다.

32. <험한 절벽 길>을 다 파내고 편하게 ‘평지’로 만들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자기 생각>을 온전히 만들어라.

33. 만들 때는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만들어 놓으면, 월명동 자연성전과 같이 아름답고 좋다. 고로 인생 평생, 영 영원히 편하게 산다. 모두 편하게 살기 원하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근본인 <생각>을 안 만들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길로 가게 한다.

34. <자기 생각>도 <몸>도 만들어 놓고 ‘축복’을 받아야 감당하고 누린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선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육신>이 땅에서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게 하셨고, 그에 따라 그 <영혼>은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고로 종교 역사를 시작하고 6000년 동안 계속 <보낸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주시며 계속 만들고 계신다.

36. <생각>을 제대로 만들고, <육의 행실>을 제대로 만들고, <영>을 온전히 만들어야 된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37. 허허벌판을 그냥 놔두면, 삭막하고 쓸쓸하고 적적하다. 나무를 베다가 다듬어서 집을 지으면, ‘거할 처소’가 되어 ‘안식처, 편안한 장소’가 된다. 이와 같이 <너의 거친 생각과 행위>와 <쓸쓸하고 희망 없는 생각들>을 다듬어서 마치 집 짓듯 만들어라. 가만히 두면 얻는 것이 없다.

38. 최고로 만들 것이 ‘자기 생각, 자기 행실, 자기 인생’이다. 그리고 ‘자기 환경 만들기’다. 그리고 ‘이 세상 인생들 만들기’다.

39. <자기 생각, 행실, 인생>을 ‘황금 덩이’로 값있게 만들어라. <휴거된 생각과 욕과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40. 자기가 사는 집 주변에 ‘독사’나 ‘무서운 짐승’이 있으면, 잡아 없애야 인생을 평안하게 산다. 이와 같이 자기 생각에 ‘불의하고 악한 생각’이 있으면, 무섭게 잡아 없애야 욕도 영도 평안히 살게 된다.

41. <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생각과 행동들>을 ‘성령님의 감동의 용광로’에 넣고 녹여 버리고, 새롭게 재탄생돼야 한다. 몸부림쳐 만들어라.

42.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영’을 변화시켜 하늘나라에 와서 살라 함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행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영’도 온전히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43.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의 욕>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 영>을 천국에 못 보낸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다. 무지한 인생이다.

44. <자기 영>이 천국에 가면 <자기 혼>도 같이 가니, <욕>이 죽고 땅에서 썩어 없어져도 <욕>이 천국에 간 것이나 다름없다. (반복) <자기 생각, 행실, 인생>을 ‘황금 덩이’로 값있게 만들어라. <휴거된 생각과 욕과 영>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의 욕>도 ‘땅’에서 평안히 살고, <너의 영>도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비유>가 ‘나의 말, 나의 언어’다. 깨달아라.

2. <비유>를 잘 풀어야 된다.

3. <비유>를 잘 풀려면 ‘비유한 존재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주신 자’께 물어보면서 풀어야 된다.

4. 새벽꿈에 ‘한 운동장’이 보이고, 운동장에 ‘한 발, 한 아름이나 되는 물개 같은 고기’가 축구 골대를 향해 빠른 속도로 기어 들어갔다.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대가 넘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 물고기가 골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마치 골을 막듯이 골문을 막고 또 막고 있었다. 그 물고기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면서 여러 번을 여자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려고 했다. 물고기가 미끄러우니 놓칠 뻔했는데, 여자는 물고기 위에 올라타서 몸으로 누르고 굴렀다. 물고기는 이빨을 보이며 물려고 했다. 여자는 골문 앞을 1m 남겨 놓고 몸부림을 쳤다. 또 여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물고기가 머리를 써서 여자의 히프 밑을 확 뚫고 들어가 골대를 향해 기어 들어갔다. 물고기의 몸이 반 이상 골문으로 들어가서 골인 할 뻔했는데, 이때 여자가 히프로 물고기의 몸을 확 누르고 손으로 겨우 막았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번에는 물고기가 ‘공’이 되어 공격을 했다. 그러나 여자는 끝까지 막았다. 그리고 붓으로 ‘물고기 이마’에다가 “이제 끝이다.” 하고 <끝> 자를 쓰니, 물고기가 힘이 쭉 빠지더니 사라졌다.

5. 이 꿈의 계시는 ‘비유’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비유>는 ‘계시를 주는 자의 언어’다. 하나님의 언어다. 잘 풀어야 된다.” 하셨다. <자기>가 ‘공격하는 물고기 입장’인지, ‘막는 골키퍼 입장’인지 풀어야 된다. 이에 따라서 <자기>가 ‘승리자’인지, 아닌지 좌우되기 때문이다.

6. 하나님도 성령님도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꿈>에 보여 주신다. 어느 때는 <자기>가 ‘공격자 입장’이고, 어느 때는 ‘막는 입장’이다. ‘자기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보인다. 이 꿈은 <막는 자>가 승리했고 <공격하는 자>가 졌다. <막는 자>는 겨우 위기를 면하면서 막았다. <공격하는 물고기>는 시간을 넘기고 반칙을 해 가면서 공격했다. 끝났는데도 자꾸 공격했다. 여자가 머리에 ‘끝’이라고 붓글씨를 서서 붙이니, 그제야 사라졌다. 이날 꿈의 여자는 ‘계시를 받는 자’였다. 이 계시와 같이 몸부림을 치다가 간신히 일어났다.

7.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찾는 자에게는 ‘항금을 캐는 것’을 보여 주신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청소하는 것, 정리하는 것’을 보여 주신다. 꿈으로 생시로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 기도해라> 함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해라.’ 함이다.

2. 선악 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기도>라는 ‘대화’와 ‘간구의 일’을 하여 해결해라.

3. 어떤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책임 분담’도 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령으로 대화하고 의논’하면서 해야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하는 일>이 된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같이 해 주신다.

4.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근본’을 깨끗이 해결해 주신다. <근본자>이시기 때문이다.

5.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민족에 속한 죄와 불의’를 밝혀 ‘썩는 것들’이 드러나게 해 주신다.

6. 하나님은 각 나라마다, 개인마다 <연말 심판>을 꼭 하신다. <심판>은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것’이다. 고로 ‘더러운 것’이 있으면, 꼭 ‘청소’해야 심판을 면한다.

7. <거짓된 행위, 부정한 행위, 더러운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8. 하나님은 ‘끝’에 가서 드러내신다. <끝>에 잘한 것은 ‘상’을 주시고, ‘불의’는 드러내신다.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고, 사람을 통해 심판도 하신다.

9. 이제 ‘한 해의 끝, 연말’이다.

10.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세계다. <그>가 와서 나라와 세계를 다 창조주 하나님께 고해 버렸다.

11. 사탄과 마귀들이 이 세상을 자기 나라라고 하며 왕이 되어 사람을 쓰고 이 세상을 쥐고 행했다.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며 ‘매인 것’을 풀고, ‘민족과 세계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회개하면서 전능자가 이 나라와 세계를 다스려 달라고 간구했다. 이에 하나님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다 드러내어 상 주실 것은 상 주시고, 치부를 드러낼 것은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고로 그냥 두면서 ‘해’를 넘긴다. 삼위와 그가 보낸 자만 알고 행한다.

12. <세상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하나님의 섭리사’만을 놓고 기도하면 ‘수만 명 중의 한 명을 구하는 것’과 같아서 안 된다. ‘수만 명 중의 한 명’을 구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온 세상’ 모두를 놓고 간구하여, 그들도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뜻을 펴게 한다.

13.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한 명도 안 빼놓고, 그 차원대로 한 명, 한 명 ‘선악 간의 행위’대로 갚아 주며 뜻을 펴신다. 고로 ‘자기’뿐 아니라 ‘가정’과 ‘섭리인,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온 세계 백성들’과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14. 옆집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자기 집이나 정원만 치우고 깨끗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겠느냐. ‘온 마을’을 다 깨끗이 해야 된다. 고로 사명자는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고 다 한다.

15. <자기 주관권>만 놓고 기도하면 자기 주관권만 ‘길’이 되어 차가 갈 수 있고, <다른 자의 주관권>은 ‘길’이 안 되어 차가 못 간다. <온 민족>에 다 ‘길’을 내야 다 다닐 수 있듯이,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 행해 달라고 간구해라. 자

기 차원대로 간구하면 된다.

16. <작은 기도>는 ‘자기에게 속한 기도’이고, <조금 큰 기도>는 ‘가정 단위, 교회 단위의 기도’이고, <더 큰 기도>는 ‘섭리사, 세계 교회, 민족과 세계, 경제와 정치와 국방을 위한 기도’다. 마치 자기가 책임을 지듯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17. <깨달은 자>가 해야 된다.

18. 왜 ‘깨달은 자’가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모른다. 그들은 <죄>를 ‘생활’로 보고 수시로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보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고로 ‘죄를 죄로 아는 자들’이 대신 기도해 주어 그들도 심판받지 않게 해 주고, 자기도 그로 인해 해를 받지 않게 해야 된다. <민족과 세계>는 ‘자기와 연관된 지체’다.

19.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고로 ‘절대 법’이 있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존재를 못 하신다. 고로 때가 되면, 꼭 처리하신다. 그 전에 재촉하며 간구해야 된다.

20. 하나님이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 제가 처리할 테니 맡기세요!” 하고, ‘빼낼 것’을 꼭 빼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처리하시게 해야 된다.

21. 삼위일체는 지구가 돌아가듯 행하신다. 고로 <지구>를 막지 말고, 때가 되기 전에 <빼낼 것>을 빼내야 된다.

22. <달리는 열차>를 막지 말고 <철길에 앉아 있는 자들>을 미리 여유 있게 빼내듯, 미리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 하여 구해야 된다. 사고를 당한 후에 살리려고 치료하면, 10배나 더 힘들다. 열차가 떠나기도 전에 끌어내라. 이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은 자’다.

23. 장마 지기 전에 가물 때 도랑 치고 집단속 하고 홍수에 대비하는 자는 ‘침단의 지혜자’다. 장마 지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니 건지는 자는 ‘50% 지혜자’다. 홍수가 끝나고 행하는 자는 지혜가 하나도 없이 ‘미련함만 머리에 꼭 찬 자’다.

24. 해마다 오는 홍수, 해마다 오는 연말 심판을 경험하고도 <연말 때> 또 기도하지 않고 우두커니 있지 말아라. 너희는 ‘신부’다.

25. <부지런한 자>가 누구냐. ‘미리 행하는 자’다.

26. (하나님) <연말 심판>을 하기 전에, <양심 심판>을 하기 전에 <기도>를 선포하고 행하게 한다.

27. <양심 심판>을 보아라. ‘홍수 심판’이다. 양심들이 있지, 국가나 교회에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리하면 되겠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이니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는 자들은 온 세상에 알려 부끄럽게 하고 심판하신다. 육적 신앙인, 형식 신앙인이다. 시대가 하늘 앞에 행한 대로 모두 받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28.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해 준 것’을 모르고 산다.

29. 하나님은 ‘전쟁을 하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세상이 ‘그들의 행위’를 봤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모두 깨부수셨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다.

30. 전능자를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자들’과 ‘샤머니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부끄럽게 하셨다.

31. 기계도 고장 나면, 터지고 물이 솟아나고 작동이 안 된다. 사람도 불의와 불법으로 고장 나면, 작동을 못 한다.

32. <강도와 폭력자와 살인자들>은 풀어 주어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구하러 보낸 구원자>는 묶어서 십자가에 매달았으니, '구원할 자'가 없어서 이 시대가 고통을 받고, 같이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구원자>를 죽였으니, '구원할 자'가 없어서 400년 로마 박해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치고 경제고 예술이고 종교고 다 썩어서 소멸되고 말았다.

33.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해라. 끝의 때가 온다. 미리 간구해라. 자기와 가정과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와 국방을 위해서 간구해라. <간절한 기도>가 극히 필요한 이때다.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수고하고 희망을 걸고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만나거나 겪었을 때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그렇게도 낙심된다.

2. 인생은 '자기 취향'대로 살아간다.

3.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개성대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 의지를 주어 살아가게 하셨다.

4. <자기 취향과 만족>은 물, 땅, 산같이 저마다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5. <자기 취향>은 '자기 개성, 체질, 마음,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엄격히 차원이 다르다.

6. <자기 차원, 자기 개성>대로 '사랑할 상대'를 찾고, '먹을 음식'을 찾고, '살 곳'을 찾는다.

7. <자기 취향, 자유 의지>라도 '하나님의 뜻, 선' 안에서 이루며 만족하며 살아야 허무하지 않고 영원하다.

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온 세상 만민을 골고루 다 사랑하며 대해 주되, '하늘 취향에 맞고 만족한 자'를 찾아 더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을 '자신의 욕'으로 삼고 행하시며 '뜻'을 이루신다.

9.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자기 취향'대로 택해서 만족하며 산다. 그러나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는 선악 간에 '자기'가 받는다.

10. <자기 취향>대로 살다 보면 상대가 다 못 맞춰 주니, 가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상대와 헤어지기도 한다.

11. 어떤 사람은 <자기 현실>은 맞춰서 살 수 있는데, <앞날>이 자신 없다고 하며 '하나님과 주'께 맡긴다. 그러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12. <절대자 하나님의 취향>을 배우고 그대로 살 때, 더 만족하고 기쁨이다. 가다가 힘들어도 결국은 잘된다. 그리고 영원하다.

13.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만든 후의 취향대로 행하며 살아야 자기 욕 인생도, 혼도, 영도 만족하게 살 수 있다.

14. 자기 취향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살면서 겪어 보는 것'이 다르다.

15. 음식도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먹어 보는 것'은 다르다. 사람도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붙어서 살아 보는 것'이 다르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 취향에 맞았는데, 실제로 붙어서 같이 살아 보면, 자기 취향에 안 맞는 자들이 너무 많다.

16. 시장에서 음식을 고르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만족하며 "열 번을 사도 이것을 사서 먹는다." 하고 장담했어도, 막상

먹어 보고는 “별로네.” 하며 먹다가 반은 남기는 것이 있다.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하여 푸념하고 하소연하면서, “너는 그거 사 먹지 마.” 한다. 인생도 그러하다.

17.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뜻>만이 ‘육 일생, 영 영원까지’ 영원한 취향 만족이다.

18. 섭리사가 자기 취향에 안 맞다고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끝’에 가서 <휴거>로 ‘최고의 뜻’을 이루 시고, 마음을 쏟아 <황금성 천국 역사>를 이루셨다. 나간 자가 이 뜻과 기쁨을 알겠느냐. <취향>이 왜 안 맞는지 ‘이 것’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좋은 것도 싫어하게 된다. <삼위와 주의 취향>이 하늘까지 높고 <하나님의 휴거 역사>가 육계와 영계를 통틀어 최고 기쁨 역사라도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싫은 것이다.

19. 처음에는 안 맞아도 ‘체질’이 바뀌면 맞게 된다.

20. 처음에는 잘 맞는 것같이 생각돼도 ‘실체’를 겪으면서 같이 살아 보면 안 맞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맞는 것같이 생각돼도 ‘실체’를 겪으면서 같이 살면서 체질이 바뀌면 잘 맞기도 한다.

21.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의 취향>이 최고다.

22. 집도 환경도 음식도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듯이, <사랑>도 ‘자기 취향’대로 찾아간다.

23. 처음에는 ‘고차원 신앙’이었어도 신앙이 식으면 ‘고차원을 싫어하는 취향’으로 바뀐다.

24. 섭리사에서도 ‘자기 수준, 자기 차원, 자기 실력’대로 성령 취향, 말씀 취향, 계시 취향, 대화 취향, 사랑 취향, 관리 취향, 전도 취향, 강의 취향, 집회 취향, 목회 취향, 부서 취향 등이 바뀐다.

25. 하나님과 주의 생각과 일체 시켜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행하면서 깨달으면, <자기 생각의 수준>이 바뀐다. 이에 <자기 취향>도 바뀐다.

26. <취향>이 안 맞으면 ‘만족’이 없어서 못 산다.

27. <취향>이 안 맞아도 ‘고치면서’ 살기도 한다.

28. <주>와는 취향이 맞으나 안 맞으나 ‘일체’ 되어 맞추어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것’이 보장되고, ‘삼위와 주의 것’이 자기 것이 되어 쓰고 누리며 산다.

29. <자기>가 ‘그 차원’으로 올라야 <삼위와 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 주고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

30. <자기 취향>과 맞으면 ‘천국’이다.

31. <천국의 집>은 자기가 삼위와 주를 믿고 사랑하며 그 뜻대로 행하여 구원받고 휴거되면, 자기가 행하는 대로 ‘자기 취향’에 맞게 날마다 건설된다.

32. 아무리 최고로 좋은 <황금성 천국>이라도 ‘취향’이 맞아야 가서 산다.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들이 가는 세계이며, 삼위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돼야 가는 세계다. 고로 <정결한 신부>로 살지 않으면, ‘취향’이 안 맞아서 못 산다.

33. 기성은 ‘황금성 천국의 취향’을 모른다. 고로 안 맞아서 못 산다.

34. <천국의 개인 집>은 ‘두 가지 형식’으로 건축된다. 첫째 단층 별장식 집이 있고, 둘째 2층 이상의 집이나 빌딩이 있다. 그러나 세상의 별장이나 아파트나 빌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35. <천국 집의 정원>은 정말 끝내준다. 잔디, 나무, 바위,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36. <취향>은 ‘자기 생각, 정신, 행실’이 크면서 달라진다.
37. 양과 염소를 보아라. 노는 것, 사는 것이 다르다. 사람도 <양 같은 인생, 염소 같은 인생>이 있는데, ‘생각, 환경, 삶의 취향’이 완전히 다르다.
38. 동물들도 식물들도 ‘기후와 환경과 삶의 취향’이 다 다르다.
39. <귀신, 마귀, 악한 영들의 취향>은 ‘하나님의 취향’과 다르다. 고로 같이 못 산다. 고로 ‘위치와 환경과 삶’도 다르다.
40. <취향>은 ‘제2의 생명 역할’을 한다.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과 기억에서 사라지고 잊은 것>이라도 생각하면 순간 생각난다. <뇌신경>은 생각하면, 신경을 깨워 주어 생각나게 한다.
2. 잊은 것뿐 아니라 <어떤 것>을 두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삼위일체는 ‘거기에 대한 답’이 생각나게 하신다.
3.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에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줄 수 없다.
4. <생각>해야 ‘생각’이 ‘거기에 대한 답’을 골라낸다.
5. 많은 조약돌이 있는데 ‘어떤 것을 주워 갈까? 원형? 타원형? 납작한 것?’ 먼저 계획하고 육이 행해야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줍게 된다. <생각>도 ‘생각하는 일’을 해야 <생각>이 ‘답’을 찾는다.
6. <생각>이 ‘생각하는 일’을 해야 <생각>에서 ‘답’을 찾아낸다.
7.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이 안 난다. 이때 <생각>을 시켜서 생각하면, 뇌에서 생각하여 기억나게 한다. 고로 하나님은 “생각하면 답이 온다.” 하고 근본을 깨우쳐 주셨다.
8. <육이 할 일>은 ‘육’이 하면 ‘답’이 온다. <생각에서 할 일>은 ‘생각’해야 ‘답’이 온다.
9. <육의 답>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행해라. 그러면 <너의 행위>로 ‘답’을 얻게 해 주겠다.” 하셨다. 이와 같이 “<생각으로 답을 찾을 것>은 생각으로 ‘생각의 일’을 해야 ‘답’을 찾는다.” 하셨다.
10. 전에 봤던 사람도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답답하다. 그때 집중하고 계속 생각하면 ‘현실에서 봤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더 집중하면 ‘뇌의 영상’에 또렷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11. <생각>해야 ‘기억’난다.
12. 방에서 잃어버린 것은 눈을 감고 있으면 못 찾는다. 자꾸 눈으로 사방을 살살이 살펴봐야 찾게 된다. 이와 같이 <생각에서 잊어버린 것, 생각으로 답을 찾을 것>은 ‘생각’해야 스스로 답을 찾게 되고, ‘삼위’도 생각나게 해 주신다.
13. <생각>은 보다 ‘정신적, 영적’인 것이다. 고로 ‘영에 속한 생각’으로 행하면서 ‘답’을 찾아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일마다 자꾸 생각해라. 그러면 답이 온다. 네가 생각해야 나도 성령도 답을 준다.” 하셨다.

14. 어떤 것을 놓고 ‘살까, 사지 말까? 어떻게 할까?’하며 결정을 못 하고 있었다. 이때 기도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기를 “자꾸 생각해라. 그러면 <생각>이 확인하고 판단한다. 생각하면 <흔>도 가서 보고 확인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흔>이 ‘생각’에게 전해 주고, 나 성령도 하나님도 함께한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생각으로 할 것>은 ‘생각’으로 통하고, <눈과 몸으로 할 것>은 ‘눈과 몸’으로 통하는 것이다.” 하셨다.

15. <몸>을 놀리면 ‘몸’이 무기력해지듯, <생각>을 놀리면 ‘생각’이 무기력해진다.

16. 말을 잘 안 하는 자는 ‘입’도, ‘생각’도 무기력해진다.

17. 걷는 것을 잘 안 하면 다리가 무기력해지듯, <신앙>도 그러하다. 자꾸 ‘시대 말씀’을 듣고 전해 줘야 무기력에서 벗어난다.

18. 노래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노래 예술이 무기력해진다. <생각>도 그러하다.

<2016년 11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9. 기억났을 때 기록하든지 행하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 이와 같이 제때 안 하면 ‘때’와 같이 사라져 버린다.

20. 어떤 것은 남녀가 짝지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지나가듯 뇌에 순간 지나가서, <남자>를 기억하고 기록하면 <여자>를 잊는 듯하다.

21. 어느 때는 ‘사슴과 토끼’가 동시에 순간 지나가듯 뇌에 순간 지나가서, <사슴>을 기억하고 기록하면 그 순간 <토끼>가 순간 도망쳐 버리듯 한다.

22. 이와 같이 뇌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데,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하나>는 사라지기도 한다.

23. 동시에 ‘두 가지 생각과 영감’이 올 때 <한 가지>를 다 쓰고 <다른 한 가지>를 쓰려면 잊어버린다. 이럴 때는 두 개 다 ‘한 단어’씩만 기록해 놓고, 나중에 다 써야 된다. 그래야 두 개 다 기억난다.

24. <생각>은 ‘순간’ 지나간다. <영들>은 ‘생각’같이 빠르다.

25. <영의 신령함의 강도, 영의 사명, 영의 차원>에 따라서 ‘영의 속도’가 좌우된다.

26. 운동선수들도 급이 높을수록 더 빠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높으면 더 빠르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이야기하면, 삼위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절대자’라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신다. 가령 본인이 ‘소금’에 대해서 잘 알면, ‘소금’을 대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이야기해라. “그 사람도 소금같이 짜지요?” 하면, 맞으면 “그러하다.” 하신다. 가령 “하나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겨울 차가운 냉방같이 냉랭하지요?” 하면, 맞으면 “그러하다.” 하고, 안 맞으면 말씀을 안 하신다. 그때! 꼭 “가끔씩은 불을 켜 뜨거운 방 같지요?” 해 봐야 된다. 맞으면 “그러하다.” 하신다.

28. <자기가 잘 아는 만물이나 사람>을 ‘비유’로 들어서 말하고 물어라. ‘자기가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말해야 대화가 잘되고, 하나님과 성령이 마음으로 말씀하셔도 잘 알아듣는다.

29. 그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고 귀히 보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대고 말하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도 그렇지요?” 하면, 삼위일체도 훨씬 더 좋아하신다.

30. 사랑하는 자와 대화할 때도 ‘상대가 해 준 것, 사 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것을 사 줘서 너무 좋았어요. 옷 색도 딱 맞았고, 사이즈도 딱 맞았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더 좋아하고 대화도 더 잘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도 그것에 빚대서 이야기하면, 삼위일체가 더 좋아하시고 대화가 더 잘된다. 특히 ‘사랑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한다.

31. <성자바위>, 또는 <자연성전의 산과 돌들>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들’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이니 더 좋아하시고 대화도 잘된다.

32. 저마다 <자기가 잘 아는 것>을 들어서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라. 그래야 대화가 잘된다.

33. <영동한 이야기>를 하면, 심정이 잘 안 맞아서 연결이 안 된다.

34. <자기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원하시는 합당한 것>을 들어서 말해야 대화가 잘 통한다.

35. <하나님도 인생들도 최고로 잘 아는 것>이 ‘사람의 지체’다. 고로 ‘지체’를 들어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자기도 잘 알고, 하나님이 귀히 잘 만드셨으니 하나님도 좋아 대답하신다. 고로 대화가 잘 통한다. 가령 “하나님, 월명동이 ‘여자 자궁 형상’ 같지요?” 하면, 그러하니 “그러하다.” 하신다. 또 “월명동이 ‘왕의 의자 형상’ 같지요?” 하면, 그러하니 “그러하다.” 하신다. 합당하면, 마음으로 대답하시며 깨닫게 하신다.

36. <만물>을 보면서도 연결해서 깨달으면 ‘답’이 온다. 이것이 ‘만물과의 대화’다. 그것을 ‘하나님과 성령과 연결’시키면 ‘만물 계시’다.

37. 가령 “하나님, 월명동 지형에는 특별한 형상이 없지요?” 하면, 합당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니 평생 대답이 없을 것이다.

38. “하나님, 성령님, 할 말이 있어요! 월명동 지형은 조각가나 화가가 계획적으로 조각하고 그린 것 같아요. 형상이 진짜 확실해요! 저는 월명동 지형에 대해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 확실히 깨달아져요. ‘왕의 의자 형상, 자미원 형상, 여자 자궁 형상’도 있고, 이제 ‘초승달 모양’도 보여요! 실제로 산 형상이 네 가지 모양으로 확실히 되어 있어요!” 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가 헛소리했겠냐? 먼저 ‘내가 보낸 자’가 알게 하고, ‘그’를 통해 내가 행하느니라.” 하신다. (월명동 지형은 ‘초승달 모양 = 반월 모양’도 갖추고 있다. <섭리역사> 책에 나와 있다. 다 알아야 된다. 또, 내 말씀을 제일 많이 보는 자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 내가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확실히 배워야 확실히 안다.)

39. 사명자가 아니면 못 깨닫게 하신다. 그래야 모두 그를 통해 온전히 배우고, 이단들이나 악평자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40.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꼭 그렇게 생겨서 그것으로 비유하지 않으신다. ‘형상과 모양’이 전혀 같지 않아도 ‘그것’으로 비유하신다. ‘특성과 뜻’이 그러하니 ‘그것’으로 비유하신다.

41.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 같다고 비유하신다. 그런데 <지구의 모양>은 전혀 ‘사람 형상’과 닮지 않았다. 그런데 <지구>를 보고 ‘사람’ 같다고 비유하신다. 그 ‘특성과 뜻’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주 최고의 생명체>는 ‘지구’다. <지구 최고의 생명체>는 ‘사람’이다. <지구>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서 사람 같은 역할’을 한다. 고로 <지구>를 ‘사람’으로 비유하신다. ‘특성’ 때문이다.

42. 어느 때는 <사람>을 ‘방’ 같다고 하신다. 집에서 <방>이 최고로 좋기 때문이다.

43. 하나님은 <사람>을 두고 ‘지구에 보이는 수억 가지 존재물들’로 다 비유하신다.

44. 하나님은 “<비유>는 ‘나의 말, 나의 언어’다.” 하셨다.

45. 한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작품>을 모두 말하면서 70가지를 말했다. 그때 하나님은 “여기는 ‘내 입’ 같지 않나.” 하셨다. “솔직히 말해서 입 같지 않아요.” 하니, “<전체>를 봐야지.” 하셨다. <전체>를 보니 ‘입 모양’ 같았다. 성경도, 존재물도 ‘전체’를 보아라. 어떤 사람이 ‘개미허리’라도 ‘썩 들어간 데’만 보면 모른다. <전체>를 봐야 ‘개미허리같이 가늘다는 것’을 안다. 사람도 ‘그 사람의 전체’를 보아라.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행한 것’을 보아라.

46. <지도자>도 따르는 자들을 볼 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 <따르는 자들>도 지도자를 볼 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양달과 응달, 장점과 단점’을 다 보고 판단하고 대해라. 단점도 고치면 빛난다. 고치면 다 빛난다. 고로 고쳐라.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47.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역사와 말씀을 악평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족속’이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사망’에 처해 무지와 시기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48. 모두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서 영원히 후회한다.

49. 주 불신자, 배신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매일 ‘흑암’으로 몰고 끌어난다.

50. <생명권에 있는 자들>은 주와 함께 ‘사망권에 있는 자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무엇으로 심판하겠느냐. <옳은 말>이 ‘심판’이다.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주신 옳은 말>로 ‘심판’해라. <옳은 시대 말씀>으로 ‘심판’해라.

51. 천하가 다 편해도 <악>은 편하지 않으니, 그들은 영원히 ‘사망’에서 끝난다.

52. <자기 주관, 자기 의지, 자기 생각들>을 ‘삼위의 생각’으로 여기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속고, 자기 스스로 사망을 만들어서 사망에 처하게 된다.

53. 하나님은 <악>은 용납하지 않으신다. <회개>만이 살 길인데, ‘회개 기회’가 다 없어졌다.

54. 말세 때는 이단은 이단끼리 합해진다. 같은 길이라서 같이 가기 때문이다.

55. 악평자들과 반대자들과 반박자들은 그들끼리 뭉친다. 길이 같으니, 같이 사망으로 기울어져 가기 때문이다.

56. 악인은 스스로 자멸하니, 구경도 하지 말고 ‘섭리의 갈 길’을 가자. 훗날 ‘그들이 당한 소식’이 전해져 온다.

57. <악인이 당하는 것>을 보다가 차를 못 타고, 천 리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58. 어떤 자는 돼지 잡는 것 구경하다가 막차를 놓치고, 밤에 걸어갔다. 차를 타고 간 자는 뉴스로 보고, 그 시간에 쉬고 제 할 일을 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스스로 자멸하는 악인들을 구경하지 말고, 어서 ‘섭리 길’ 가자.

59. 악인들이 쫓아오니 의인들이 도망가다가 ‘새로운 땅’을 발견했다.

60. 악인들이 의인들의 지역을 뺏아서, 의인들은 다시 다른 곳을 찾다가 ‘보화 건물’과 ‘30년 동안 원하던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고 귀히 쓰게 되었다.

61. 악인 원망 말고, ‘우리들의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악인들이 수고한 것>은 다 ‘의인들’을 위해 주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주신다.

62. 악인들이 핍박해서 섭리사가 이리 커졌다.

63. 이단과 악평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들의 수고>가 ‘섭리사’로 온다.

64. 집에서 핍박하니, ‘대둔산’으로 가서 기도하며 조건을 세웠다. 거기서 연단받고, 결국 ‘대둔산의 전설’을 이루고, ‘6000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폈다. 1980년대에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가인들이 가져가서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고향 월명동’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오늘날같이 ‘자연성전’을 개발했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뜻’을 찾고 ‘역사’를 폈다. 고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행해라.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삼위가 역사하셔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2.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도 땅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3. <사람들>은 ‘신부’라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생각해라. 둘이 같이 행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행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4. <사람들>이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휴거와 구원의 시동’이 걸린다.

5. 작아도 ‘형상’을 이뤄야 된다.

6. 작다고 실망하지 말아라. ‘형체’를 이뤄야 되니, 작은 것이다.

7. <불의>를 행하면, ‘사탄이 개입한 것’임을 깨달아라.

8. <의>를 행할 때는 ‘사탄’이 돕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천사들과 자기 변화된 영과 혼이 돕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9. 어디까지 ‘사탄의 영향’을 받고 불의를 행한 것인지, 어디까지 자기 ‘스스로’ 불의를 행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100% 온전하게 행하면, 죄에 가담되지 않으니 심령이 맑아서 기도하면 깨달아진다.

10. 어디까지 ‘악평자들의 유혹’으로 못 했는지, 어디까지 ‘자기 책임’을 못 해서 못 했는지, 어디까지 ‘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못 했는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확인하면 안다.

11. 사탄이 유혹하거나 타인의 영향으로 못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못 해서 못 한다.

12. 거의 ‘자기 자신’에서 좌우된다. 자기가 제대로 하면, 그만큼 흠이 없으니 사탄도 조건을 못 붙이고 개입하지 못한다.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무지>하면, ‘극에 속한 무지 속’에서 산다.

2. <생각이 무지>하면, ‘극에 달한 무지 속’에서 산다.

3. <무지한 자>는 같은 세상, 같은 나라, 같은 도시, 같은 동네에 살아도 그의 생각도 삶도 딴 세상에서 살아간다.

4. <생각이 무지>하면, 가까이서 행할 일을 멀리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까마득한 데서 행한다.
5. <지혜>는 찾을 것을 ‘자기 집 근처’에서 찾아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같이 잔치한다.
6. <모르면> ‘지구 끝’에서 찾아다니면서 보고 즐기고, <알면> ‘자기 집 근처’에서 찾아서 매일 보고 기뻐하며 산다.
7. <모르는 자>는 ‘천 리나 떨어진 타향’에 가서 얻는다. 그것도 다행이라고 하며 감격하고 산다.
8. <지혜로운 자, 아는 자>는 ‘자기 고향, 자기 집 근처’에서 찾아 키우며, 그것을 매일 보면서 기뻐하며 산다.
9. <모르면> ‘천 리 떨어진 곳’에서 놓고, <알면> ‘자기 집 근처’에서 논다.
10. <미련한 자>는 칼날을 보고 좁다고 원망하나, <지혜자>는 기뻐한다.
11. <생각이 미련>하면, 거꾸로 생각하면서 좋아한다.
12. <생각이 미련>하면, ‘안 할 것’인데 “이것은 보화다. 사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거꾸로 생각하고 한다.
13. <지혜자>는 알고서 팔고 가고, 혹은 아예 안 사고 기뻐하며 산다. <미련한 자>는 지혜자가 보화를 자기에게 뺏겼다고 좋아한다. <미련한 자>가 ‘보화’라고 생각하고 산 것이 무엇인지, 후에 가서 보니 ‘알맹이 없는 밤송이’와 같다. 얻은 것이 눈도 찌르고 마음과 몸도 찌르니, “이것은 시험과 핍박이다.” 하고 참고 인내한다.
14. <지혜자>는 딴 데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서 즉시 기뻐하며 사고, “내가 보화를 찾았다!” 하고 잔치한다.
15. <미련한 자>는 싫어서 팔고, <지혜자>는 좋아서 산다.
16. 음식도 과일도 안 먹어 봐도 냄새를 맡아 보면 안다. 세상만사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느낌, 깨달음, 감각, 영감, 육감, 직감’으로 안다.
17. 하나님이 “그것이 좋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정말 좋다.” 하시는 것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 미인을 찾는 것같이 어렵다. - 만일 그것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준 것’이니 평생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삼위일체를 모시고 잔치해라.
18.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좋아하며 맛있게 다 먹으면 또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고 좋아하며 잔치하면 하나님은 만사에 또 행하신다.
19. 배부르면 옆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못 먹는다. 그새를 못 참고 어디서 ‘찬밥’을 먹고 왔느냐.
20. <미련한 자>는 못 참고 ‘찬밥’을 먹고 와서 ‘혼인 잔치 진수성찬’을 보면서 군침만 흘리고, 설거지만 해 주고 돌아간다.
21. <미련한 자>는 ‘보물’을 거꾸로 보고, 물 보듯 흘려보낸다.
22.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보낸 자의 사명이 끝났다. 섭리사는 끝났다.” 하고 10년 전에 나갔다. 그때 ‘미련한 자들’이 다 나갔다. 그들이 마음먹고 있던 대로 욕심을 부리고 나가서 제 아비 마귀를 따라 행한다. 하나님은 보낸 자의 욕심을 쓰고 계속 행하시어 ‘거주들’을 내보내시고, 순식간에 신부들을 ‘휴거 단장’ 시키시고, 연속해서 ‘땅과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하시고, ‘시대 휴거 잔치’를 하며 창대하게 하신다.

23. <미련한 자들>은 ‘오전 잔치’에 참여하고 다른 마음을 먹고 음모한다. 이에 사탄이 꾀어 “잔치 다 했다. 잔치 끝났다.” 하는 말에 속아서 모두 떠났다.
24. 생각이 미련하면, ‘지혜자가 이미 묻혀 있는 보화를 다 캐 간 밭’에 희망을 걸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까지 저당 잡혀서 그 밭을 산다. 그리고 ‘종’이 되어 희망으로 살아간다. 인생 거꾸로 생각하고, 좋아하고 혈안 되어 살아간다.
25. 미련한 자는 거꾸로 따지고 좋아하며 희망으로 행한다. <시대 혼인 잔치>가 끝나고 ‘신랑, 신부’는 떠나는데, 그때 잔치 시작한다고 하며 그 집 근처에서 허리끈 졸라매고 기다린다. 이에 동네 개가 도둑으로 알고 짖어 댕다. 기분 나빠서 돌을 던지니, 동네 개들이 쫓아와서 물고 흔들며 놓지를 않는다.
26. <미련한 생각>은 아무리 차원 높여 생각해도 계속 ‘미련한 쪽’으로 생각한다. 그 종착역은 사망과 지옥이며, 고통의 세계다.
27. <지혜자>를 떠났으니, ‘재물과 부귀와 영광’이 같이 떠난 것이다.
28. <지혜의 왕>을 잊으면 ‘무지의 왕’이 다스리는데, 하나도 아는 것 없이 다스린다.
29. <무지의 왕>은 ‘아는 지혜’를 ‘무지’로 보고, 용납을 안 한다.
30. <지혜자>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무지자>는 ‘하늘’에서 ‘육신’ 가지고 눈에 보이게 하나님도 메시아도 다시 온다고 생각한다. <무지>가 ‘왕’이 되어 다스리기 때문이다.
31. 이 시대 <무지의 잠을 자는 자들>은 눈을 감았으니 “밤이다.” 하고, <눈을 뜨고 사는 자들>은 “벌써 해가 떠서 할 일 다 하고 해가 저 간다.” 한다.
32. 존재물이고 사람이고 때가 되면 주인이 바뀐다. <주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33. <주인>이 오면 ‘주인의 때’가 왔으니, 월명동같이 가진 자들이 <주인>에게 내준다.
34. 모두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라. 그리고 같이 써라.
35. <주인>이 아니면 비싸게 줘도 안 팔고, <주인>이 오면 헐하게 줘도 판다.
36. <주인>이어야 그렇게도 좋아한다. <주인>같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가 없다. <주인>은 구상하고 만들고 사랑해서 다.
37. 전능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시다.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구상하고 만드셨다. 다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쓰고 행하셨을 뿐이다.
38. 우주와 지구, 만물과 사람은 모두 ‘창조주의 구상’이다. 고로 그 존재를 자세히 보면,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 물어라. 사신 우상이나 점술가에게 물으면 ‘죄’가 되고, 스스로 ‘거꾸로 생각’하게 된다.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39. <미련한 자>는 ‘한 가지’만 보이니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고, <지혜로운 자>는 ‘두 가지’가 보이니 ‘두 가지’다’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한다.

40. <미련한 자>는 ‘지옥 쪽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한다.
41. <지혜로운 자>는 ‘지옥 쪽’도 보고 ‘천국 쪽’도 보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행한다.
42. <미련한 생각>은 ‘한 가지’만 보고 한 발로 다니며 절름발이 삶을 살게 한다. 고로 모두 보고, 바로 안다.
43. <전능자 삼위일체>는 ‘두 가지’를 보고 병행하며 사신다.
44.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 되지 못하면 미련하게 생각하고 행한다. 고로 두 가지를 병행하지 못하고, 계속 그같이만 산다.
45. <미련한 자들>은 ‘구시대’에 속해 두 가지를 병행하지 못하고 구시대에 갇혀 산다.
46. 원수 마귀와 악평자들을 없애도 ‘하나님과 주가 원하시는 일’을 못 하면, 유익이 없다. <하나님과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핵’이다. 이 일을 하면 원수 마귀와 악평자들도 없어지게 된다.
47. <미련한 자>는 기다리고, <지혜자>는 쫓아간다.
48. <미련한 자>는 미련함을 거둬 행한다.
49. <미련한 여자>는 ‘지혜자’가 그렇게 같이 살자 해도 마다하고, 천 리 길을 떠나 ‘미련한 자’를 찾고 맞아 같이 산다.
50. <미련한 여자>는 ‘지혜자’가 같이 살자고 쫓아다니는데도 마다하고, 산을 넘어가서 ‘사망으로 갈 미련한 남자’를 쫓아다니며 짝사랑하며 산다. <지혜자>는 “내가 때가 되면 왕이 되어 그 소식이 네게 들릴 것이다. 그때는 네가 나를 보지 못하니 좋겠다.”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긴다. “결국 네가 사랑하며 따르는 자도 사망에 덮이고, 너도 그를 따라 같이 사망에 덮인다.” 하니,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웃는다. <미련함>을 좋게 여기기 때문이다.
51. <지혜자>는 “지금은 고생돼도 다시는 고생 길 안 간다.” 하고 칼잠, 새우잠을 자면서 끝까지 따르고 행한다. 그러다 하늘 운을 타고 하늘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끝까지 행하여 승리한다.
52. <지혜자>는 칼잠을 자고 고생하면서 따르다가, 결국 ‘하늘 말씀의 칼’을 가지고 민족과 세상을 누비며 치타같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면서 성령과 주와 함께 외치고 다닌다.
53. <지혜자>는 ‘초장’을 보고 ‘끝장’을 본다.
54. 미련하면 ‘자기에게 올 복’을 ‘화’로 여기고, <지혜>만 쏙쏙 골라서 밤잠 못 자 가며 지혜자가 있는 담 너머로 던져 준다. 그래 놓고 “마음에 꺼려서 버렸다. 내 속이 편하다. 이제 피곤하다.” 하면서, 추수하는 가을에 낮잠이나 잔다. <지혜자>는 ‘미련한 자가 기분 나빠하며 버린 것들’을 거저 주워 온다.
55. <미련한 자>는 ‘보화에 소경’이다. 고로 ‘보화’를 못 팔아서 안달이 나 있다.
56. <지혜자>는 미련을 손에 쥐고 있는 숯불 덩이같이 내던진다. <미련한 자>는 눈치를 보며 이 골목, 저 골목 ‘지혜자가 버린 것들’을 가져다 쌓아 놓고 ‘미련의 낙’을 누린다.
57. <미련한 여자>는 지혜자에게 소외감, 섭섭함을 타서 혈기와 분노에 타 버리고 <미련한 남자>의 품에 안겨 멍이 들게 맞으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따른다. ‘전에 지혜자가 미련하다고 버린 자들’이다.

58. <미련과 가까이하는 자>는 ‘자기 방’을 ‘쓰레기장’으로 허락하는 자와 같다. 이에 <지혜로운 자>는 매일 그곳에 생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

59. <지혜자>는 ‘미련’을 쓰레기 버리듯 매일 버리나니, 지혜자의 집은 깨끗하니라.

60. <지혜로운 입>은 ‘표현’을 잘하여, 그 말을 듣는 자들로 듣고 따라오게 하느니라.

61. <미련한 자>는 까칠하여 찢러 대는 밤송이를 보고 쫓아가서 손으로 까발린다. 밤송이 가시에 찢려 가면서 용감한 미련을 드러낸다. 까 봤으나 속을 보니 아무것도 없다 한다. <지혜자>는 밤송이가 어서 크라고, 밤나무에 퇴비하고 물을 주어 길렀다. 때가 되니, 밤송이가 짝 벌어져 ‘알밤’이 쏟아져 나왔다. 이때 <지혜자>가 말하기를 “내 수고가 끝나고, 벌써 거두는 가을이냐. 수고대로 알밤이 커서 주먹만 하다. 세계 곳곳에 키운 밤송이들이 잘 벌어져서 웃고 있구나.” 했다. 밤송이들이 떨어지면, 굴을 막아서 쥐들이 못 나오게 해 버린다.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한다. 고로 ‘나쁜 것’은 보지 말아야 된다.

2.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 고로 ‘나쁜 것’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생각’이 조금 나기 시작할 때 짓뭇개 없애 버려야 된다.

3. 뇌 신경은 극도로 예리하다. 고로 <생각한 것>이 좋은 나쁜 ‘그 생각’이 초를 따질 수 없이 일순간에 확 들어와 버린다. 뇌는 한 번 입력되면, 자꾸 반복해서 생각을 거듭하게 된다. 고로 ‘나쁜 것’에는 아예 <뇌의 문, 생각>을 열어 주지 말아라.

4. <불의한 생각, 호기심의 생각>은 한 번 들어오면 흰옷에 먹물이 떨어져서 안 지워지듯 하여, 결국 <몸>으로 행하게 된다.

5. 뇌에 ‘그릇된 생각’을 없애려면, 기도해라! 그리함으로 ‘그릇된 생각’을 내보내고 ‘옳은 생각들’로 가득 채워라. 이는 마치 구정물에 맑은 물을 계속 들이붓는 것과 같아서 구정물이 넘쳐서 나가고 깨끗한 물이 차게 되듯, 뇌에 ‘옳은 생각들’을 계속 채우니 뇌가 맑아진다.

6. 세상 찌든 문화나 각종 더러운 것들을 보고 좋아하면, 그것들이 뇌에 물들어 버린다. 그러면 늘 물레방아 돌듯 반복하게 되고, 계속 그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것을 봐야만 즐겁고 기쁘게 된다. 결국 인생이 찌어서 ‘영원한 생명권’에서 벗어나 ‘죽은 사망권에 속한 욕과 영’이 된다.

7. <생각>은 ‘먹는 물’과 같다. 깨끗한 물을 먹듯이 뇌에 ‘깨끗한 생각’을 넣어야 된다. ‘나쁜 생각’을 넣으면, 마치 ‘더러운 물’을 먹는 것과 같아서 바로 ‘병’이 온다.

8. 월명동 약수같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도 ‘시대의 흠 없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뇌에 넣어야 된다.

9. 비원리 말씀, 사탄 교리, 악평자들의 말, 이단의 말을 들으면, ‘자기 욕이 자기 혼과 영을 사망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10. <뇌>에 넣는 대로 ‘욕, 혼, 영’이 변화된다.

11. <뇌>는 ‘선악에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넣으면 기뻐한다.

12. <뇌 신경>은 생각의 길을 틀리고 체질을 만들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13.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만사를 보아라. 그래야 ‘선악이 구분’된다.
14. <뇌>는 자기가 ‘선’을 그어 놓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닷물에 각종 썩은 물이 들어오듯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뇌에 담긴다. 그리고 몸으로 행하게 된다.
15. 인생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잘하고 살아가라. 생각을 잘못된 만큼 손해다.
16. <뇌를 사랑하는 자>는 성공하고, <생각을 사랑하는 자>는 성공한다.
17. <뇌>에 ‘아무것’이나 넣지 말아라. <생각>에 ‘아무것’이나 용납하지 말아라. 입장과 처지를 다 거부하고 ‘나쁜 것, 불의한 것들’은 받지 말아라. 그래야 ‘자기가 생각하고 행한 일’로 고통받지 않는다.
18. <자기>가 ‘불의를 용납’하여 <자기>가 ‘고통’받는다.
19. 문제를 당하고 처리하는 자보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잘 행하는 자>가 ‘최고 지혜자’다.
20. 지혜로운 자는 아예 미련한 자가 다니는 길 옆으로도 가지 않고, 산을 넘어서 물이 흐르듯 다른 방향으로 행하며 간다.
21. <죽은 시체>도 명당에 묻으면 좋다고 하며 ‘좋은 밋자리’를 찾아다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보낸 자>에게 ‘좋은 자리’를 주어 거기 살게 하시고, 거기서 뜻을 펴게 하시지 않겠느냐.
22. <새>들도 ‘좋은 자리’를 찾아서 집을 짓고 산다.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눈뜬 자는 ‘좋은 자리’를 찾아 살지만, 소경들은 모르고 비웃는다.
23. 사람들도 산과 들과 땅을 사면, 먼저 ‘좋은 자리’가 있는지 찾아다닌다. 물이 솟아나는 샘이 있나 찾아보고, 집 짓고 살 곳이 있나 찾아보고, 큰 나무가 있나 찾아보고, 혹시 장마 지면 폭포수라도 될 자리가 있나 찾아보고, 약초가 나서 자라나 찾아본다.
2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중에서 좋은 곳’이 있는지 찾았다.” 하셨다. 사람도 <좋은 자리>는 타인에게 안 주고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하나님도 <좋은 자리>를 찾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25. 수만 평의 땅을 사도 ‘좋은 자리’가 있다. 경지도, 값도 ‘그 한 군데’를 ‘전체’가 못 따라간다.
26. <좋은 자리>는 ‘전체의 핵’이다. 고로 <전체>는 ‘핵의 무대 배경 역할’을 한다.
27. <핵>을 보고 사고, 개발도 한다.
28. <월명동의 핵>은 ‘전체에 비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전체>는 ‘배경’이다.
29. <핵심지>가 나머지도 모두 가지고 있다.
30. <핵>은 ‘전체의 보화’다.
31. <핵>이 있는지 보고 사는 것이다.
32. 사람도 ‘타고난 핵’이 있다. 저마다 그것을 찾아서 개발하고, 보화로 귀히 여기며 희망으로 살아라. 그것을 내놓으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33. <핵>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기도 하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에서 잊은 것>은 아예 못 한다.

2. 사명을 맡은 자라도 ‘뇌’에서 잊으면, 못 하는 것들이 많다. 아는 자가 해라. 그 사람이 기억날 때까지 두다가는 한 세월이 가고, 할 일을 못 해서 모두 손해다.

3.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좋아하고 기뻐한다.

4. 선택의 차원이 천층만층이지만, 다 ‘자기 취향’에 맞으니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5. 타인이 볼 때 “왜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하지만, ‘선택한 자의 취향’에 따라서 뇌가 조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택한 것이다. 고로 ‘선택한 자’만 좋아하고 미쳐 사는 것이다.

6. 눈도 생각도 ‘조종하는 대로’ 좋아한다.

7. 망원경을 볼 때도 거리에 따라 초점을 맞추고 조종하는 대로 보인다. 먼 것도, 가까운 것도 자기가 조종하기에 따라서 가까이, 혹은 멀리 보인다. 자기 눈에 맞으니 좋아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 자기 생각의 높이’에 맞춰 만족하고 좋아하며 살아간다.

8. 물건도 ‘보는 차원, 생각하는 차원’대로 거기에 맞춰 선택하고 좋아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9.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한다.

10. 눈으로 보기만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있고,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따로 있다.

11. 눈에는 음식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도 막상 먹어 보면 생각과는 다른 음식도 있다. ‘자기 체질’이 있기에 먹어 보면 안 맞는 음식이 많다. - 사람도 겪어 봐야 안다.

12. 목수가 집을 지을 때 나무가 안 맞아도 깎아 맞추면 다 맞듯이, 사람도 환경을 만들고 자기도 깎고 상대도 깎아 만들면 다 맞다.

13. 다 맞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다.

14. 인생은 ‘자기 눈높이, 생각의 높이’로 살아간다.

15. <생각>이 바뀌고 <취향>이 바뀌니, 안 맞는 것이다.

16. 처음부터 예쁘고 좋아 보이는 땅이나 지형이나 물건은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사 간다. 사람도 처음부터 좋아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데려간다.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생겨야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고, 자기만 알고 안 뺏긴다. 결국 ‘자기 것’으로 아름답게 만든다. 그때부터는 자기 것이니 안 팔고 안 뺏긴다. 월명동도 그러했다.

17. 치타는 어릴 때는 밤송이같이 멋있게 생겼다. 크면 ‘최고 멋있고 아름답고 늘씬하고 빠른 동물의 왕’으로 변신해 버린다.

18.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울퉁불퉁 거칠게 생긴 돌>은 모양과 형상이 있다. <매끈한 돌>은 거의 형상이 없다. 사람

도 그러하다.

19. <자기 만들기>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답게 된다.

20. <육신>은 태어난 대로 산다. 가꾸고 꾸미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영>은 만들기에 따라서 무한하게 신같이 아름답게 된다.

21. (하나님) 사람들이 ‘맞으니까’ 좋아한다. -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 자기 취향,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어려도 좋아하고, 그렇게 생겼어도 좋아한다고 하셨다.

22. 뭐든지 누구든지 ‘생각’을 맞추면, 다 맞고 좋아한다.

23. <선인>이라도 ‘악인의 마음’과 맞추면, ‘악’을 좋아한다.

24. <섭리인>도 마음이 변하여 ‘악평자의 마음’과 맞추면, 그쪽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러고는 때가 되면 ‘왜 이같이 미친 짓을 했나?’ 한다.

25. 사람이 변심하면, 질도 모양도 달라져서 달라진 대로 좋아하며 산다.

26.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나서 사는 삶>은 자기 욕이 좋은 대로 살아도 미래에 지옥과 고통의 세계로 가니, 실상은 불쌍한 삶이다.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27. 사람들은 ‘자기 눈높이, 자기 생각, 자기 취향’대로 살면서, 좋다고 하며 살아간다. 20년, 30년, 40년 누리고 후에는 사망으로 가면, 누리던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현실에 처한 고통만 느끼고 받는다.

28.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먹고 입고 살아도 ‘영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자의 삶’은 하나도 부러워할 삶이 못 된다.

29. 옥에 갇힌 자 중에서 매일 그리도 걷고 뛰고 운동하면서 희망에 차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희망에 차서 산다고 부러워했다. 하루는 같이 걷다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자기는 수술을 네 번이나 했다고 했다. 그래서 악착같이 걷고 운동해야 건강이 겨우 유지된다고 했다. 그리고 언제 나가느냐고 하니, 자기는 ‘무기수’라고 했다. 여기서 이러다 죽으니, 모든 일을 잊고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걷는다고 했다. 알고 보니 부러워할 자가 못 되었다.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자들이 이러하다. 그들을 보며 ‘저렇게 즐기며 사니 좋겠다.’ 하지만, 부러워할 것이 못 된다. ‘무기수 인생’, ‘시한부 인생’과 같다.

30. 옥에 갇힌 자들은 하나둘씩 짝 지어 다니면서,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를 매일 한 시간씩 하면서 산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 보니, 다 이성과 술과 향락으로 즐기던 이야기들이었다. “옥에 있다가 나가면 또 먹고 즐겨야지.” 하는 자기 희망의 이야기들이었다. 그 역시 부러워할 삶이 못 되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자들이 허다하다. 모두 자기 삶을 즐기며 희망에 차서 이야기하고 자랑하지만 ‘자기가 사망관에서 행하며 즐기던 이야기’를 풀면서 자랑하는 것이다.

31.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면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산다. 세상에는 인생을 이같이 사는 자들도 있다.

32. 어떤 사람은 ‘옥 안에서 일하는 희망’으로 살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고 물으니, ‘사형수’라서 세상 희망들을 다 죽이고 옥 안에서 그리도 열심히 일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옥 안에서의 희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역시 세상에는 이같이 살고 있는 자들이 많다.

33. 이미 사망권의 선고를 받고, ‘자기가 처한 환경의 희망’만 바라고 살 수밖에 없는 삶이다.

34. 자기 삶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 삼킨 바 된 자들은 ‘사망 속’에서 희망과 낙을 찾으면서 산다. 그러고는 생명권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말하며 자랑한다. 그 삶을 부러워하겠느냐.

35. 사탄이 생명권으로 가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계획에는 희망이 많다. 너도 같이 해 볼래?” 한다. 미련한 자는 따라간다.

36. <세상>을 ‘천국’으로 보고 ‘육’만 누리고 살다가 끝나는 자들은 미래 없이 현실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자들이다.

37. 미래 없이 ‘현실의 육’만을 위해 사는 자들은 마치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안 짓고 산의 열매만 따서 먹으며 즐거워하다가 머지않아 긴 겨울을 맞는 자와 같다. 그 겨울은 ‘영원히 춥고 배고픈 미래의 겨울’이다.

38. 추운 겨울 날 눈보라가 쳐서 눈이 쌓일 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니, ‘미래를 위해 살지 않은 자들’이 산으로 들로 다니고 있는데 모두 추위에 얼어서 얼음덩이 몸이 되어 다닌다. 얼어서 사랑도 못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눈을 먹으면서 다닌다. 밤이면 춥다고 비명을 지른다. 힘들지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을 위해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미래를 위해 산 자들’은 과거에 고생했지만 미래를 위해 산 보람으로 천국같이 산다. 방도 뜨끈뜨끈하고, 먹을 것도 생각하는 대로 다 먹고, 하늘 모시고 기쁘게 살아간다.

39.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대화 천국’을 이루었다. 두 가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만든 것인데, 둘 다 기도해서 받았다. 어느 날 이 두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묻기를 “둘 중의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했다. 하나님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저것과 비교가 안 돼.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지만, 저것은 사람이 못 만들어. 그러니 비교가 안 되지.”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과 비교가 안 되게 값이 있다.’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도 <만들 때>가 있어서, <때> 지나면 누가 구해도 못 만들어 준다. 내가 만들어서 준 것을 귀히 여기고 써라.” 하셨다.

40.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아무리 귀하고 귀하고 또 귀한 것’을 숨겨 뵈다 주셔도 <그것의 가치>와 <삼위의 심정>을 모르면, ‘배설물’같이 된다.

41. 귀한 만큼 쓰고 기뻐하면서 ‘삼위일체와 같이 쓰기’다. 그다음에 ‘깨닫고 아는 자와 같이 쓰기’다.

42. 극의 창조의 대(大)결작품이다. (=월명동)

4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구를 창조해 놓고, 나는 <좋은 장소>를 찾으러 다녔다. 그곳에 <역사>를 시작했다.” 하셨다. (=월명동)

<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한 가지>만 하면서 하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해야 하니 더 ‘불가능’하다.

2. 다른 일을 하면서도 <기도 시간>이 됐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된다. 그러다 <기도 시간>이 되면, 가차 없이 하던 일을 자르고 기도해야 된다.

3. 일부러 성의 없이 하다가 <기도 시간>을 어긴 것이 아니고 일하다 보니 시간을 몰라서 늦었으니, 알아서 가면 된다.

4. 하나님도 성령님도 얼마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신다.

5.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늦었어도 날아가듯 하게 된다.

6. 일하다가 <기도 시간>을 어기고 잊게 되니, 벽에 크게 써 붙이고 눈만 뜨면 시간표를 보게 해라.
7.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기대했는데 20분 늦었구나. 그래도 기도했으니, 그냥 잔 것보다 낫다.” 하셨다.
8. <꿈>에 아쉽게 된 것은 <생시>에도 아쉽게 된 것이다.
9. 어떤 일을 두고 <꿈>에 ‘아쉽게 된 것’을 보여 줄 때가 있다. 그렇다고 <생시>에도 무조건 ‘아쉽게 되는 것’이 예정은 아니다. “네 책임을 못 해서 그리되었다.” 함이다.
10. 교역자나 지도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교회에 일꾼이 없다. 같이 될 사람이 없다.” 한다. 교회에서 ‘일꾼’과 ‘인재’를 못 찾는 이유가 있으니, <자기중심, 자기 차원, 자기 생각>에서 찾기 때문이다.
11.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찾아야 ‘일꾼과 인재’가 많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택해서 오게 했다. 고로 다 일꾼들이고 인재들이다.
12. 가정의 실, 바늘, 바가지, 빗자루, 쓰레기통 등 작은 살림살이 모두 다 ‘일꾼’이며 ‘인재’다. 개인도 이와 같이 ‘개성’으로 보아라.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났을 때, 그 순간 그때를 따라서 해라.
2. 생각이 섰을 때, 그 순간이 행할 기회다.
3. 귀에 들렸을 때, 그 순간 그때를 따라 행해라. 그때가 기회다.
4. 눈으로 봤을 때, 그 순간이 거기에 대한 기회다. 그때를 따라 해라.
5. 새벽에 눈 떴을 때, 그 순간이 그 시간에 해당되는 기회이며 일어날 수 있는 기회다.
6. 만사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때와 기회’가 있다.
7. <생각도 행동도 빠른 자>만 ‘기회’를 잡는다.
8. <생활의 기회>는 ‘시간’과 같이 매일 항상 오고 간다. 배우고 신경 써야 ‘자기 삶의 기회’를 알고, 그 기회를 잡아서 쓴다.
9. 순간순간 ‘거기에 해당되는 기회’는 지나간다.
10. <기회의 달인>이 되어라.
11. 날파리를 잡을 기회도 ‘순간’이다. 날파리보다 더 빨라야 잡는다. <기회>도 ‘순간’이다. 기회보다 더 빨라야 기회를 잡는다.
12. 가령 <새벽 1시라는 기회>를 잡는다 하자. 12시 50분에는 깨서 기다려야 잡는다.
13. 가령 <자기 애인>이 적에게 잡혀가서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점을 지나간다 하자. 그 지점에서 미리 대기하면서 양

손으로 자기 애인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이 자기 애인을 데리고 몇 초 사이로 순간 지나갈 때 그때! 적을 확~ 떠밀어 절벽으로 떨어뜨리고, 순간 자기 애인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 적이 10분 뒤에 뒤따라온다 하자. 또 순간의 기회를 잡고, 애인과 같이 적을 확 밀어붙여 절벽에 떨어뜨려 통쾌하게 승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숨 걸고 하는 자’만 마치 적에게서 자기 애인을 구하듯 ‘기회’를 잡고 승리하여 통쾌하게 얻는다. 그것이 평생 유익이 된다.

14. 각자 자기 차원대로 ‘새벽 시간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 새벽 1시의 기회를 놓치면 새벽 2시를 잡고, 새벽 2시의 기회를 놓치면 새벽 3시를 잡고, 새벽 3시의 기회를 놓치면 새벽 4시를 잡아라. 이렇게 시간마다 ‘앞 시간의 기회’를 놓치면 ‘다음 시간의 기회’를 잡고 꼭 ‘할 일’을 해야 된다.

15. <기회>는 마치 가을에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계속 감을 따듯이 온다. 가지마다 감들이 열려 있으니, 계속 따면서 내려와야 된다. 그냥 내려온 곳은 감들이 매달려 있다. 결국 새들이 따 먹는다. 이와 같이 <기회>는 ‘세월이라는 나무의 열매’와 같아서, 시간마다 거리마다 인생길마다 계속 연결되어 있다. 매일 ‘작고 큰 기회의 가지, 자기에게 해당되는 기회의 가지, 섭리사에 해당되는 기회의 가지’에서 ‘기회의 열매들’을 만난다. 잡아서 써라. 단! 섭리사의 것은 자기가 쓰지 말고, 잡아서 하나님과 주께 드려라.

16. 자기가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다 ‘자기 것’이 아니다.

17. 남의 자녀, 남의 집 닭, 남의 집 강아지인데 길을 잃었다고 ‘자기 것’이 아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어 잃어버린 자녀와 집닭과 강아지를 찾게 해 줘야 된다. 담장 너머 사는 이웃의 것인데도 몰라서 못 돌려주고 남의 집 자식, 남의 집 닭, 남의 집 강아지를 대신 키워 준다. 서로 교통하지 않으니 그러하다. 다른 이웃들이 보고 듣고 전해 주어, 서로 알고 만나 주고받게 해야 된다. 그러면 중개해 준 사람도 기쁘고, 찾아 준 사람도 기쁘고, 주인도 기뻐 같이 잔치하게 된다.

18.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국가의 것>은 ‘국가’에 돌리고, <형제의 것>은 ‘형제’에게 돌리고, <자기 것>은 ‘자기’가 가지고 키우고 써라. 그래도 못다 쓴다.

19. 마음이 섰을 때, 그때 해라.

20.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섰을 때, 그때 해라.

21.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자기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고 뜨거워진다. 그때 해라.

22. 옳은 생각이 섰을 때, 그때 성령께 말하고 대화해라.

<2016년 11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식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맛있게 먹는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확인해 보면 음식물을 입에 넣고 몇 번 깨물고 넘기는 사람이 있고, 꼭꼭 씹어서 넘기는 사람이 있다. 위를 갈라서 확인할 수는 없다. ‘식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보면 알고, ‘먼저 숟가락을 놓는 것’을 보면 안다.

2.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우악스럽게 확확 전하고 끝난다. 그러니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이나?” 하면서 골 아파한다.

3.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먼저 전초해 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증거자’를 보내어 ‘전초’해 주고 역사를 펴셨다.

4. 자기가 급하다고 막 외치고 스릴 느끼고 끝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빼고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

5. 기드온 300명 용사를 뽑을 때, ‘성질 급하게 우악스럽게 하는 자들’은 한 명도 용사에 못 들어갔다.

6. <하루의 길>은 ‘두 번 갈 시간’이 없다. 고로 아예 처음에 갈 때 한 번에, 차근히 시간을 맞춰 가면서 보고 듣고 할 일을 하면서 유유히 걸어가야 된다. 숨 가빠 조급하게 가는 자는 -다 가고 나서 쓰러져, 아직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잠을 잔다. 시간을 보면서 차근히 보고 듣고 행할 것을 하면서 가는 자는 - 가면서 사람도 사귀고, 빨래터에 들어서 그 마을 사연도 들어주었다. 그러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에 신선이 지나가다가 빨래터에 들어서 이야기하다 서로 좋아 사랑 잔치 한다는 말이 생각한다.” 했다. 이 말을 듣고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닌가?’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 주니, 사람들이 수군대며 “전설의 주인이 왔다.” 하고 잔치를 하게 되었다. 결국 전설을 이루었고, 그 마을을 이상적인 곳으로 만들어 주었다. 결국 그 마을이 ‘자기 뜻을 이룰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안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따져 보고, “정말 전설의 주인이 맞습니다!” 했다. 그러나 더러는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렸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안 오니, 야속해하며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다렸다. 결국 안 오고 끝났다.

7. <시대>를 잘 가르치고 전해라. ‘교리’만 전하고 ‘자기’만 기빠 흥분되어 말하고 끝나면 되겠느냐.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듣고 소식을 전해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는지 안다. 말씀의 주인이 나타나 가르치면, “우리가 이 맛있는 참된 진수성찬을 정말 맛있게 먹고 자라서, 그리도 ‘휴거의 꽃’을 못 피우고 ‘열매’도 작았구나.” 한다. 시대 말씀을 들은 자들은 <휴거의 열매>가 크고 아름답고 향기가 나야 된다.

8. 시대 말씀을 들은 자들이 좋아하고 기빠하고 감탄하고 놀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실력’을 안다.

9. 주인이 강의했을 때는 듣는 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면서, 그 말씀이 권세 있고 세력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고 충격받고 깨닫고 기절할 정도였다. 지금은 ‘더 엄청난 말씀’을 내놓았다. 학문적으로만 알게 하면, 그 수준에서 끝난다. 강의하는 자도 기도하고 성령과 주의 심정으로 전하며 표현을 잘해야 하고, 배우는 자도 기도하고 잘 들어야 된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자는 감동과 감화로 전하여 놀라게 하고, 어떤 자는 말씀 내용만 알게 한다.

10. 강의뿐 아니라 <설교>도 그러하다. 설교 내용은 다 같다. 그러나 능력 있게 전하여 감동과 감화를 주는 자가 있고, 내용만 알게 전하는 자가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짜증 나게 하는 자도 있다.

11. 어떤 제자가 내가 시킨 일을 한 후에 내게 보고를 하는데, 꼭 두 시간, 세 시간, 혹은 며칠씩 봐야 겨우 그 말이 이해되게 말을 했다. 그러다 어느 날은 그 편지를 보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다시 물어봤다. 궁금하여 성령께도 물어봤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 이와 같이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그 강의를 들은 자들이 궁금하여 머리 아파한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내가 가르쳐 줘라. 일하는 자는 늘 그것을 보고 있으니, 안 궁금하다. 또 못 보는 자의 심정을 모르니 자세히 말을 안 해 주고 표현을 못 해 준다.” 하셨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 100% 이해되게 말해 줘야 제대로 코치해 주고 구상도 해 준다. 신앙의 일이나 주가 맡긴 일에 대해 대강 보고하든지 세밀하게 보고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손해다. 나중에 다 드러날 때는 충격이 크다. 시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러하다.

12. 어떤 사람은 주가 맡긴 일, 자기가 한 일을 제대로 정성스럽게 이해되게 절실하게 간절히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그 보고대로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동쪽에 가서 꿈을 꿀 사람이 서쪽에 가서 꿈을 깨고 있었다. 주의 책임이 아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다.

13. 거울 앞의 자기 모습이다. 자기 얼굴대로 보이고, 자기 행동대로 보인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보고도 이와 같다. 보고대로 대한다. 그렇다고 결재만 받고 허락만 받으려고, 자기가 한 일을 좋게만 말하려고 좋게만 보고하면 안 된다. 확인해 보면 다 알게 된다. 고로 될 것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말만 잘해서 허락받고는 “결재받았다. 허락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도 한다. 그러면 보는 자들이 ‘틀린 글씨’를 알고 말하듯이, ‘성령과 주의 구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물어본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된다. 고로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꼭 <주 머리>로 하라는 것이다. 어떤 일을 맡기면 ‘일을 맡긴 자’에게도 물어보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물어봐서 정확히 파악한다.

14. 목회나 사명을 달라고 그렇게도 간절히 간구하여 일을 맡기면, 처음에 몇 번만 소식을 전하고 갈수록 소식이 줄어들다가 안 통한다. 이런 자들이 96%다. 섭리역사에 다 기록해 놓고, 1000년 동안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당세에

도 그 차원의 일만 맡기고, 때가 되어 임기가 끝나면 다시는 일을 안 맡긴다. 주의 마음을 알아라. 삼위일체의 마음도 그러하다. 때가 되면 ‘숨은 것들’이 드러난다.

15. 초가지붕 위의 높은 호박이나 높은 박을 보아라. 여름에는 무성한 잎에 가려서 안 보인다. 그러다 가을이 되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인생 가을에는 ‘숨은 것들’을 다 드러내어 모두 알게 하신다.

16. 때가 되면 ‘자기가 한 일들’이 선악 간에 모두 드러나서, 모두 보고 알게 된다. (잠시 쉬었다가)

17. <힘>은 수십 가지로 온다.

18. <정신의 힘>과 <생리적으로 생기는 힘>이 다르다.

19. <운동해서 오는 힘>과 <음식을 먹고 그 영양분으로 오는 힘>이 다르다.

20. <육의 힘>은 영양분을 흡수함으로 육체로부터 오고, <정신의 힘>은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데 자기 정신을 쏘는 대로 온다. <운동해서 오는 힘>은 근육에서 온다. 그만큼 연단되고 단련하면 더 많은 힘이 온다. <영적인 힘>은 영이 자기 능력으로 다른 곳에서 힘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자기 자체적으로 힘을 내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면 ‘신의 힘’이 온다. <아는 힘>은 또 다르다. 아는 대로 ‘생각’으로 힘이 온다.

21.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거기에 속한 힘’이 온다.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일부만 봐서는 멋이 없다. 100% 봐야 멋있다. 고로 힘들어도 100% 하라는 것이다.

2. 100% 해야 ‘전체’를 보게 되고 ‘전체’를 얻게 된다.

3. 사람들은 힘드니 ‘일부’만 행하고, ‘일부’만 얻고 살아간다.

4. 성경도 ‘일부’만 풀고 알고, ‘일부’만 행하고 살아간다.

5. 대화할 때 ‘표현’을 제대로 해야 재미있고 기쁘다.

6. 설명할 때 ‘표현’을 잘해야 된다.

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창조 법칙을 보면 ‘전체’를 아름답게 창조해야 하니, 어떤 것 하나만 특이하게 잘 만들지 않으셨다. 모두 다 아름답게 만드신다.

8. 사람의 수백 가지 지체도 ‘전체의 균형과 모양과 형제’를 보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어떤 한 지체’만 아름답게 만들지 않으셨다. 만일 <한 지체>만 창조했다면, 지금처럼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다. <전체>를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야 되니, ‘모든 지체’를 각각 아름답게 만들어서 ‘전체’가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9. <전체>를 위해 ‘산’도 만들고, ‘평지’도 만들고, ‘절벽’도 만들고, ‘물 지역’도 만드셨다.

10. 섭리역사도 ‘혼자 뛰는 것’이 아니다. ‘전체의 균형과 모양’을 보면서 뛰어야 된다.

11. 자기 할 만큼만 하면 된다. 전체가 하니, 결국 각각 자기 할 일을 다 놓고 보면 ‘전체 조화’가 된다.

12. 가령 ‘하나의 백지’에 ‘일곱 자 붓글씨’를 쓴다 하자. 한 장 안에 일곱 글자를 다 써야 되니, ‘어떤 한 글자’만 ‘종

이 반 장 이상'을 차지하게 크게 쓰지 못한다. 일곱 글자를 다 써야만 단어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한 글자>만 쓰려면, 아예 다르게 크게 쓸 수 있다.

1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사람의 지체>도 ‘수백 개’다. 그 지체들이 ‘한 몸 안’에 모두 조화를 이루어 살게 했다. 고로 ‘어떤 한 지체’만 크게 만들지 않았다. 만일 ‘한 지체’만 만들었다면, 아예 크게 만들었을 것이고 지체의 위치도 달랐을 것이다.” 하셨다.

14. 이를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월명동 전체>를 아름답게 구상하고 만드니, ‘어떤 한 가지’만 크게 만들지 못했다. 또 하나하나 그 위치에 둔 것이다. 만일 ‘어떤 한 가지’만 만들도록 구상했다면, 아예 크게 다르게 했을 것이다. - <사람>도 그러하고, <조직>도 그러하고, <모든 구상>도 그러하다.” 하셨다.

15. 그리고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하니, ‘전체와 균형과 조화’에 맞추어 만들었다. <옆의 것>도 만들어야 하니, ‘그만하게, 그 위치에’ 만들었다.” 하시며 “이와 같이 <섭리사 각 사명들>도 ‘전체’를 보고 크고 작게 맡겼다. ‘어떤 한 개인’만 생각하고 일을 맡기면 ‘전체 균형과 조화’가 안 맞는다.” 하셨다.

16. 10시간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에 쪼개서 쓴다. 고로 어떤 일은 크게 쪼개서 4시간을 쓰고, 어떤 일은 3시간, 2시간, 1시간으로 쪼개서 쓴다. 10시간을 가지고 <한 가지>만 하려면, 10시간을 크게 그냥 쓰게 된다.

17. 까마득한 절벽도 10~15미터 ‘밑’에서 보면 안 무섭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무섭다.

18. 삼위일체가 하시는 일은 다 신기하다. 오묘하다.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셨다.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 생각해 보아라.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생각>으로 통하고, 사람은 <말>로 통한다.

3.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삼위일체와 통하지 않는다.

4. 생각하면, 바로 삼위일체와 통한다.

5. 사람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실제 행위’가 되어 삼위일체께 보인다.

6. 사람은 <생각>하고 있으면 ‘행위’는 안 보인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사람이 <생각>만 해도 마치 녹화된 것을 틀면 화면이 보이듯 선악 간에 다 보신다.

7. <생각>은 ‘눈’과 같다. 고로 생각하는 자는 ‘생각’으로 보게 된다.

8.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도 평생도 ‘무(無)’에서 살게 된다.

9.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보고 안 들은 것’은 평생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無)’에서 살게 된다.

10. 보고 들었던 것도 기억에서 잊으면, 다시 기억할 때까지는 ‘무(無)’에서 살게 된다.

11. 삼위와 주를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그리고 행해라.

12. 인생은 ‘생각하는 맛’이다. ‘생각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다.

13. 만일 <생각>이 둔감해져서 ‘무딘 칼’과 같고 ‘설 잠이 든 것’과 같고, ‘구름 낀 하늘’ 같으면 ‘사는 맛’도 없어진다.
1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세계와 육신의 세계와 하나님께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모른 채 먹구름 속에서 살듯 하고, 굴속에서 살듯 하고, 밀림 속에서 빛을 못 보고 세상을 전혀 못 보고 살아가는 원시인과 같다.
15.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들의 목적인 바’를 행하시며 ‘뜻’을 펴시며 ‘이상적인 새로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안 믿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게 되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16. 국가에서 ‘새 시대에 해당되는 공동 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이것을 모르면 옛날에 쓰던 것만 쓰고 살면서 갖은 아쉬움을 당하며 고통과 고생 속에서 수고하며 살게 된다. - <하나님이 이 시대에 펴시는 이상적인 새로운 역사>도 모르면 그러하다.
17.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며 베푸시는 것은 ‘육신’에게도 해당되고 ‘영혼’에게도 해당되니, <새 시대 혜택>을 못 받으면 엄청난 손해이며 영원한 손해다.
18.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을 잘해라.
19. <생각>을 잘못 하면, 몰라서 못 산다.
20. 평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예 행하지 못한다. 고로 평생 쓰고 누릴 것을 얻지 못한다.
21. <생각>으로 살아가니, 하루 종일 잘 생각하고 행해라.
22. <생각>대로 행해지고, 만들어지고, 얻어진다.
23. <몸>이 생각하지 않는다. <뇌>가 생각한다.
24.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생각한 것을 말해 보아라. 생각에 대해서 자꾸 물어라.
25. <하나님 생각>과 맞게 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 인간으로서 ‘하나님 세계의 삶’을 살게 된다.
26.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냐고 물어봐라. 맞으면, 하나님과 통한다.
27.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삼위의 생각’과 맞고 합당하면, 그때 삼위일체와 통한다.
28. 물과 물은 통하듯, ‘생각’이 같으면 통한다.
29. <생각>이 같지 않은데 통하면, ‘의견 차이’가 생긴다.
30. 삼위일체와는 ‘생각이 같은 것’만 통한다.
31. 삼위가 보낸 자도 ‘생각이 같은 것’만 통한다. 그리고 ‘생각이 같은 자’와 함께 행한다. 그래야 ‘자신의 뜻과 하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다.
32. <생각>을 놀리면 ‘얻는 것’이 없다. <몸>이야 ‘생각한 것을 실천할 때’만 쓰면 된다. 그러나 <생각>은 늘 움직이며

생각할 수 있다. 놀리지 말아라.

33. <생각>은 ‘신’과 같아서 ‘빛보다 수백조 배 더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행한다.

34. <생각>을 놀리면 ‘할 일’도 없게 된다. ‘몸’도 놀게 된다.

35.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계속 ‘좋은 생각’을 하여라.

36. 육신도 혼도 영도 잘되게 하기 위해 생각해라. 그러면 <혼>도 <영>도 <생각>과 같이 활동하여 ‘혼이 가 볼 곳’은 혼이 가 보고 ‘영이 가서 확인할 것’은 영이 가서 확인한다.

37.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일체 되어 생각하고 구상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함께 하고 돕고 축복해 주신다.

38. 차원 높여서 생각해야 다른 것을 얻지, 보통으로 생각하면 보통의 것만 얻는다.

39. 영적으로 생각해야 차원이 높아진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차원이 낮아진다.

40. <절대자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그 생각과 하나 되어 사는 자>가 ‘차원 높이 사는 자’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

41.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늘 생각해라. 그래야 삼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 삼위가 무엇을 주시는지 알게 된다.

42. 자기가 극히 사랑하는 자와 길을 가는데 눈으로 늘 쳐다보면서 가야 옆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알고,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지 안다. 안 쳐다보고 가면 많이 떨어져 가는지, 조금 떨어져 가는지 모른다.

43. 쳐다보듯, 늘 생각하여라.

44. 사랑하는 자를 늘 쳐다보며 가듯, 삼위일체를 늘 생각하여라.

45. 삼위일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줘도 받지 못한다.

46.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그때 삼위와 통하니, 삼위는 그때 ‘자신의 생각’을 주신다.

47. 주를 쳐다보야 주가 눈치 하는 것을 안다. 쳐다보라 함은 ‘생각해라’ 함이다. 생각해야 ‘주의 심정과 뜻’을 알게 된다.

48.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면, ‘자기 차원의 것’밖에 못 얻는다.

49. <주를 머리>로 삼고 ‘주의 지체’가 되어 느끼고, ‘주의 손발’이 되어 행해라.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결국은 ‘쓰는 자’나 좋아한다.

2.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 ‘주인’만 좋아한다.

3. 주인은 ‘자기 것’이니 좋아한다.
4. 무엇이든지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5. 사랑에도 ‘주인’이 있다. 곧 <사랑을 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다. 한번 보아라. <사랑을 하는 자, 주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주인’이 되어 기뻐한다.
6. <짝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듯,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사랑을 느끼고 기뻐한다. 그가 ‘주인’이다.
7. <먼저 하는 자>가 ‘주인’이다.
8. 이제는 ‘삼위와 주와 같이 사는 시대’다. 먼저 삼위와 주를 찾고 사랑하며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라.
9. <주인>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10. <사는 데 주인>이 있고 <쓰는 데 주인>이 있다. ‘주인’이 더 기뻐한다.
11. <깨달는 자>가 ‘주인’이다. 고로 깨달는 자가 기뻐한다.
12. 모든 자들이 다 좋아하는 물건이 될 수는 없다. 모든 자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도 될 수 없다.
13.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것’이면, 제일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다음에는 ‘쓰는 자’가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다음에는 ‘특별히 좋아하는 자’나 좋아하고 사랑한다. 고로 ‘다’ 좋아할 수는 없다.
14. 생각났을 때 잊지 말아야지, 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찾아주기 어렵다. 고로 생각났을 때 번개같이 기록해라. 행해라.
15. 뇌에서 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먼저 ‘자기 생각’에서 감을 잡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할 말을 그 생각에 전달해 주신다.
16. <뇌의 기억 구조>를 깨달아라. <뇌>는 마치 ‘눈’과 같다. <눈>이 어떤 것을 보다가 눈을 돌리면 안 보이듯이, <기억>도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 잊으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17. 하늘에 높이 뜬 비행기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쳐다볼 때만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그때 고개를 돌리고 다시 쳐다보면 안 보인다. 고개를 안 돌렸으면 끝까지 보였다. 이와 같이 기억났을 때, 순간 다른 것을 생각하면 잊어버린다. 기억났을 때, 그때 기록해야 된다. 이는 ‘순간 보일 때 사진을 찍어 놓는 격’이다. 기억하려면,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 생각을 돌리면, 바로 잊게 된다.
18. 지나가는 차에서 눈을 돌렸다가 다시 그 자리를 쳐다보면, 차가 안 보인다. 멀리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억>도 그러하다. 기억이 나다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돌리면, 기억했던 것이 떠나가서 생각이 안 난다.
19. 집중하면, ‘평소에 잊었던 것’도 생각한다.
20.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니, 금세 기억에서 사라진다. 고로 순간 ‘한 단어’만이라도 표시해 놔야 다시 기억하게 된다.
21. 영계에 가서 <영>이 생각하고 기억하면, 어렸을 때 하던 일들이 다 기억나서 ‘죄 지은 것’도 생각나고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서 다 회개하게 된다.

22. <육성>에 속해 있으면, ‘기억’이 잘 안 난다.
23. <영>은 육보다 ‘기억’을 훨씬 더 잘한다.
24. <육>은 생각을 집중하고 기도를 깊이 할 때, 삼위일체와 일체 되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기억’이 잘 난다.
25. 자기가 ‘주인’이 돼야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한다.
26. 전능자 삼위일체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시다. 고로 상천하지 통틀어 최고로 ‘천지 만물’을 보고 제일 기뻐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신다.
27. <주인>이 쓰고 사랑해 줘야 기쁘고 즐겁다.
28. <주인>이 돼야 아끼고 좋아한다. 다 주인이 될 수 없으니, 다 좋아할 수도 없는 것이다.
29. <메시아>라도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이 다 좋아하고 기뻐하며 맛을 수 없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고 사랑하는 자’만 <주인>이 되어, 메시아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
30. <좋아하고 사랑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
31. 어떤 물건도 만물도 사람도 ‘그것에 대해 알아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다.
32. <산>에 대해 ‘알아야’ 그만큼 산을 좋아하게 된다.
33. <기암절벽과 나무, 계곡의 물과 폭포수>도 ‘알아야’ 그만큼 좋아하게 된다.
34. <물>을 좋아하는 자를 보아라. 물에 대해 잘 알고 각종으로 사용하는 자이며, 수영을 할 줄 아는 자다. 이와 같이 <주>도 ‘알아야’ 좋아한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행해야’ 더욱 기뻐하며 사랑하게 된다.
35. <돌>을 좋아하는 자는 ‘돌에 대해 알아야’ 된다. 모양, 형상, 가치, 아름다움, 신비함 등이다.
36. <운동>을 좋아하는 자를 보아라. 눈으로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도 있지만, ‘그 운동을 할 줄 알아야’ 좋아하게 된다.
3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좋아하고, 최고의 존재자로 믿고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살면서 기뻐하게 된다. 모르면 의지하는 데만 좋아하고 만다.
38. 삼위일체와 대화하며 삼위를 모시고 사랑하며 같이 살기 위해 믿고 좋아하는 자가 있고, 의지하기 위해 믿고 좋아하는 자가 있다.
39. <삼위와 대화하고 삼위를 모시고 사랑하며 같이 살기 위해 믿고 사는 자>와 <삼위께 도움 받고 의지하기 위해 믿고 사는 자>가 있다. 똑같이 좋아서 대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시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도 네 생각과 같다.
40.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물건을 찾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도 찾는다.
41. <자기 취향>도 각각이고 <자기 생각>도 각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각각이니,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좋아할 수가 없다.

42. <자기 생각, 자기 지능,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생활 정도>에 따라서 좋아하니, ‘어떤 사람’도 ‘존재물’도 ‘주’도 모든 자들이 다 좋아할 수 없는 것이다.

43. 좋아해야 일도 하고, 좋아해야 힘들어도 만든다.

44.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힘들어도 몸부림쳐서 만들어라. 그러면 평생 보고 쓴다.

45. 만들되 ‘자기 혼자’ 좋아하게 만들지 말고 ‘많은 자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좋아하시게 만들어라.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숨어 있으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인다.

2. 멀리 있어도 숨지 않고 다니면, 잘 보인다. (키우고 있는 메뚜기 한 마리가 내 방에 있는데 안 보여서 찾으니, 숨어서 눈만 내놓고 보고 있었다. 사탄도, 악한 자들도, 악평자들도 이와 같이 숨으면 안 보인다.)

3. 조심하지 않으면 다 보인다.

4. 조심하지 않으면, 상대도 적도 다 보고 있다.

5. 적은 숨어서 활동한다.

6. 숨어도 찾으면, 찾게 된다.

7. 적은 가까이에도 있고, 멀리에도 있다.

8. 생각지도 않은 데다 숨기고 숨는다.

9. 숨기는 자들은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못 하는 쪽’으로 행한다.

10. <주>는 시대에 드러나기를 원하면서도 반대자들이 알고 막을까 봐 숨기고, 알 만한 자가 아닌, 알아서는 안 될 자가 있으니 숨긴다.

11. 주를 이용하는 자들은 숨기지만, 도리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12. <자기 목적>을 위해 숨기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한다.

13. <처세>가 ‘철저’해야 된다.

14. 매사에 ‘지혜’다. ‘지식’이다. 재 보고, 달아 보고, 분별하고 행하기다.

15. <잘되게 예정된 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게 판국이 기울어진다. 신같이 하면, 다시 되기도 한다.

16. <행위>에 따라 안 되던 것을 뒤엎고 성공하기도 한다.

17. <그 면>으로는 이미 안 된다고 결정되었으면 <다른 면>으로 ‘방법을 달리’해야 더 많이 할 수 있다.

18.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육적인 사항들도 육적으로만 표현하면 단어가 부족해서 표현을 섬세히 자세히 하지 못한다. 영의 세계도 표현할 단어가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하니, <비유>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형상’을 보여 주신다.

2. <말>로는 표현의 한계가 있다. <눈으로 보여 줄 때> 잘 이해가 가고 섬세하고 예리하고 자세하게 보여서 자기 차 원대로 더욱 확실히 알고 잊지 않게 한다.

3. <말>로만 하면 ‘표현할 단어’도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바로 잊어버린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 번 듣기>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기억에 남고 믿어진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물>을 통해 ‘좋고 나쁜 것들의 그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계시로 보여 주신다.

4. <말>로 하면 ‘실체’를 보일 수가 없으나, <실체>를 만들어 ‘만물’로 그 사건을 보인다. <실체>를 ‘상징’으로 그대로 보인다. 고로 현장을 검사하듯, 실감 나게 안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시>는 자기 행위로 보여 주시고, 타인으로 보여 주시고, 만물로 보여 주시고, 꿈의 영계로 보여 주신다.

6. 자기가 행했어도 자기 행위가 ‘죄’인지 ‘의’인지 모른다. 고로 하나님은 <그 실상>을 ‘비유’로 보여 주시는데, <죄>이면 ‘더러운 것’을 보여 주시며 깨닫도록 계시하신다.

7. 항상 ‘자기가 행한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8. <영의 세계>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과 실상을 느껴서 알게 한다. 고로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보이는 것>이 ‘언어’가 되어, 그것을 보면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신다.

9. <뜨거운 것>을 ‘말’로 표현하면 느낌이 약하다. <뜨거운 불>이 직접 ‘몸’에 닿아야 뜨거운 강도를 느낀다. 이때는 ‘실체’가 느껴지면서, 그 ‘말’도 심정으로 느껴지며 전해진다.

10. <영의 세계>는 ‘생각하는 차원’이 높아서 말을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다. = 고로 굳이 다 말할 필요가 없다.

11.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면서 전달’하신다.

12. <말>로 다 하려면 어떤 것은 내용을 전달할 때 소리를 질러야 되고, 어떤 것은 각종으로 거기에 해당되게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번거로우니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보여 주고 느끼게 하면서 전달하신다.

13.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려도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안다. 그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말>과 같다.

14. <만물>은 수백만 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은 ‘수백만 가지 만물들 중’에서 <그때마다 해당되는 만물>을 보여 주시며 깨닫게 하신다. 이때 <만물>이 ‘글’이 되는데, <보는 것>이 ‘읽는 것’이 되어 깨닫게 된다.

15. 자기가 한 일이 어느 정도인지 ‘말’로 하면 애매하다. 그러나 ‘컵의 물’로 보여 주면 간단하게 깨닫는다. 자기가 한 일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적게도 많게도 보여 주며 계시하신다. (투명한 컵에 물이 5분의 1, 3분의 1, 반, 3분의 2정도 담긴 모습 보여 준다) 지금까지 ‘잠언 열다섯 개’를 쓰고 기도하니, <컵의 물>을 보여 주시며 “더 써야 된다. 80개는 써야 돼.” 하셨다. <끝> (컵에 물이 5분의 1정도 담긴 모습을 보여 준다)

16. “적다. 많다.” <말>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표현도 잘 안 되고, 잘 모른다. 고로 만물이나 사물을 직접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17. <꿈 영계>는 말이 없고, 깨닫도록 보여 주기만 한다. 보이면, 해석까지 다 되기 때문이다.
18. <자기 행위>는 ‘문제’다. 그에 따라 <보이는 것>은 ‘답’이다.
19. 자기가 ‘온종일’ 행했어도 계시로는 ‘간단하게 일순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20.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보여 주시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보여 주시어 그 상태와 상황을 분별하게 하신다.
21. 자기 행위도, 육적인 것들도 <말>로 하면 좋고 나쁜 것을 실감 나게 표현하지 못하니, <좋고 나쁜 것의 실체>를 차원대로 비유로 보여 주면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다.
22. 계시를 줄 때는 <좋은 것>은 ‘ 좋게’, <보다 못한 것>은 ‘보다 못하게’ 분명하게 보여 주신다.
23. <육적인 것>도 ‘만물’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24.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때마다 필요하면, 그때마다 <만물>이나 <사물>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계시를 보고자 노력하고 간구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더 ‘자주’ 보여 주시고, 자기도 더 ‘잘’ 보게 된다.
25. 자기가 ‘알고자 할 때’ 계시해 주신다. 그러다 그것을 생각에서 잊으면,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계시해 줘도 그냥 지나치게 된다.
26. <생각과 행위>가 흐리멍덩하면 <꿈>도 흐릿하게 꺾이고, <계시>도 흐릿하게 전달받는다.
27. 자기 생각이 딴 데 있든지 흐리멍덩하면, 무엇을 봐도 들어도 흐릿하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
28. 정신일도 하면, 확실히 들리고 확실히 보인다.
29. 정신과 생각을 일도(一到) 하면, <생각한 것>이 <실체 형상>이 되어 ‘눈’에 보이기도 한다.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대결작품은 ‘신비로움, 아름다움, 웅장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월명동같이 세계적인 걸작품이 된다.
2. 신비함만 있으면 ‘신비한 작품’이고, 아름다움만 있으면 ‘아름다운 작품’이고, 웅장함만 있으면 ‘웅장한 작품’이다.
3.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이 없어도 신비함, 아름다움, 웅장함 중의 한 가지만 있어도 ‘그 면의 작품’이다.
4. 월명동 지형은 ‘여러 가지 형상’을 갖추고 있다. 고로 아름다움과 웅장함도 있고, 신비함도 있다.
5. 월명동 지형을 보면 하나님 백보좌 형상, 자미원 형상, 여자 자궁 형상, 반월 형상 이 ‘네 가지 형상’이 확실히 갖춰져 있다. 이 외에도 ‘일곱 가지 형상’이 더 있다.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이 갖춰져 있기에 ‘세계적인 장소’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돌 하나>에 ‘네 가지 형상’이 갖춰졌다면, 그 돌이 얼마나 비싸고 귀하겠느냐. 생각의 지혜와 판단이 어리면, 그렇게 <월명동>에 대해 이야기해도 귀한지 못 느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네 가지를 갖추기’가 쉬우냐. 갖췄다면, ‘세계적인 인물’이다. 금메달을 4개 따고 4관왕 하기도 얼마나 어렵냐. 이를 알고 <자연성전>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같이 기뻐해라.

6. <돌 하나>도 성자바위같이 ‘네 가지 이상의 형상’을 갖추고, 거기에 ‘전설’까지 갖추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기 까지 하면 ‘세계적인 대결작품’이다.
7. <사람>도 ‘갖출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 팔방미인이요, 큰 자요, 신비한 자요, 아름답고 웅장한 자다.
8. <성자바위>는 한 바위에 성자 형상,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땅의 보낸 자를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을 띤 사람 형상, 지상의 빠르기의 왕인 치타 형상, 전쟁용 팬텀기 형상, 신의 발바닥 형상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전능하신 절대신 성자’가 선물로 주고 가셨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귀한 바위’가 아니냐.
9. 올림픽 경기 때 금메달을 3~4개 따서 3관왕, 4관왕을 한 선수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자’다. 그러나 3~4관왕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와 같이 바위도, 돌도, 지형도 ‘여러 가지 형상을 갖추기’는 어렵다. <형상>이 많으면, ‘금메달을 여러 개 따서 3~4관왕 한 것’과 같다.
10. 금메달 하나만 따도 ‘그 면의 왕’이 되듯이, 사람이 <한 가지>만 ‘최고’로 갖춰도 ‘그 면의 왕’ 같은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가진 자’다.
11. 돌도 <한 가지 형상>을 ‘확실하게’ 갖추면, ‘형상석’으로 취급하고 귀히 본다.
12. 사람이 <얼굴 하나>만 뛰어나게 예뻐도 그 면의 미인이고 작품이고, <몸 하나>만 뛰어나게 갖춰도 그 면의 미인이고 작품이고, <귀 하나>만 아주 잘나게 갖추고 있어도 그 면의 미인이고 작품이다.
13. 신앙도 <한 가지>라도 확실히 갖추면 ‘작품’이다.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갖추면 ‘대결작’이다.
14. 이것도 저것도 갖추지 못한 자는 배우면 되고, 자기를 만들면 된다.
15. <형상 없는 돌>은 ‘정’으로 쪼아서 <유명한 조각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갖추지 못했어도 부지런히 배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만들면 된다.
16. 수고한 대로의 값도 있지만, 조금 수고하더라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만들기’다. 그러면 조금 수고했어도 더 ‘값’이 있다.
17. <자기가 원하는 것>을 1~2년 동안 엄청나게 수고하여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면 귀히 안 봐서 ‘싸게’ 팔린다.
18. <자기에게 별로인 것>을 며칠 조금 수고하여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면 귀히 여기고 좋아해서 ‘비싸게’ 팔린다.
19. <자기>를 만들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사람들과 상관없이 귀히 쓰여진다.
20.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구원자>를 거기에 맞게 만들고 가르쳐서 보내신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보낸 자가 귀한 자다.
21.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를 만들어야 <이 세상>에서도 ‘그 육’이 가치 있게 쓰여지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가치 있게 쓰여진 것으로 인해 그 <영>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형체’를 갖추어서 <영의 세계>에서도 영원히 귀히 살게 된다.
22.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만들어서 귀히 쓰여진 것>은 ‘이 세상에서 한때’다.

<2016년 12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돌이 사람 형상이나 동물 형상을 갖추지 않았지만 구멍만 자연스럽게 뚫려 있어도 ‘신비에 속한 작품’으로 본다.
2. 꿈에 한 장소에 가니 <돌 하나>가 있었다. 돌이 형상은 없는데 타원형에 60cm 크기의 구멍이 자연스럽게 뚫려 있었다. 이 돌을 발견하고 가져오려 했다. 깨닫고 보니, ‘사람’을 보여 준 것이었다.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자다.” 함이었고, “그 돌과 같이 보화 같은 자를 얻는다.” 함이었다.
3. 나무도 가지가 골고루 뻗어 있으면, ‘그 면의 작품’이다.
4. 나무가 가지가 없고 ‘1자’로 쭉 뻗어 있으면, 역시 ‘그 면의 작품’이다.
5. 나무가 가지도 별로 없고 1자로 쭉 뻗어 있지도 않지만, 구불거리며 컷으면 그것이 ‘작품’이다.
6. 나무가 크지도 않고, 가지도 없고, 구불거리지 않아도 100년, 200년 동안 컷으면 그것이 ‘작품’이다.
7. 주인이 어릴 때부터 정성 들여 키운 나무라면, 어떻게 생겼든지 ‘작품’이다.
8. 사람들도 이러하다. ‘개성의 왕’이다. 각자 <개성>대로 ‘작품 인생’이다.
9.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성자 상징’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 상징’이다. 각각 ‘상징하는 것’이 다르다. 누구를 상징하고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되기도 한다.
10. <그 존재자를 상징하는 자>가 되려면, ‘그 존재자의 생각’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상징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삼위의 생각’대로 철저히 행해야 된다.
11. <사람>도 저마다 개성에 따라 ‘특성’이 있듯이, <존재물들>도 저마다 ‘존재의 특성’이 있다. 꼭 찾아봐야 더 가치 있게 귀히 본다.
12. <존재의 특성>이 ‘잠재’되어 있으면, ‘개발’하면 된다.
13. 월명동 지역도 ‘존재의 특성’이 있는데, 개발하기 전에는 그 ‘특성’이 안 보였다. 개발하니 ‘가지고 있는 형상과 특성’이 보였다. 섭리인 모두 월명동 지형과 같으니 ‘개발’하여라! 그래야 ‘존재의 특성’이 보이고, 더욱 귀히 쓰인다.
14. 월명동은 존재의 특성이 30~70가지나 된다. 크게 보면 ‘일곱 가지’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보면 ‘스물한 가지’ 정도 되고, 더 자세히 세밀히 보면 ‘70여 가지’가 된다.
15. 행해야 거기에 답이 있다.
16. 처음에 서툴러도, 행하다 보면 점점 유능하게 하게 된다.
17. 그냥 놔두면 - 썩고, 망하고, 없어진다.
18. 적이 없어지지만 원했는데, 적이 없어졌다 하자. 그러면 뭐하냐. 적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할 일, 자기 할 일>을 해야 유익이고 보람이다.
19. 자기 적이 지옥에 갔어도 <자기 할 일>을 못 했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20. 첫째, <말>로 하면 단어가 없으니 표현을 다 못 한다. 고로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만물>을 보여 주며 계시하신

다. 둘째, 월명동은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것’을 다 갖췄으니, 얼마나 귀하고 중하나. 돌도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형상’을 갖추면, 그리 귀하고 중하다. 왜 그리 모르느냐. <성자바위>는 ‘최고의 형상’을 갖추고 있다. 고로 값이 없다. 지구상에는 돌도 없는 작품이다. <한 지역>이 ‘여러 가지 형상’을 갖추기가 아주 어렵고, <한 돌>이 ‘3~4가지 형상’ 갖추기가 아주 어렵다. 사람도 <최고로 치는 것>을 갖췄으면 팔방미인, 영웅, 재벌, 명예가이며, <땅과 하늘이 볼 때 최고로 치는 것>을 갖췄으면 메시아다. 못 갖췄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라. 그러면 육 평생 귀히 쓰이고, 영 영원히 귀히 산다.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두 가지>가 아니면, ‘온전한 답’이 있을 수 없다.
2. 꿈을 꿔는데 생시에 보고 생각하고 행한 것에 대한 꿈이었다. 생시에 내가 보고 생각하고 행해서 그런 꿈을 꿔는지, 아니면 삼위일체가 계시해 주셔서 그런 꿈을 꾸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물어보니, 성령님은 “<두 가지>가 없으면 ‘온전한 답’이 있을 수 없다.”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첫째, 네 육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해서 그런 꿈이 꺾이기도 한다. 둘째, 네 육이 그렇게 행하니 꿈에 그렇게 계시해 주기도 한다. 고로 ‘스스로 꾸는 꿈’인지, ‘계시’인지는 분별하여라.” 하셨다.
3. 자기 육이 생시에 전도하니까 전도하는 꿈이 꺾일 때가 있고, 열심히 하니까 삼위가 그런 꿈으로 계시하실 때가 있다. 항상 ‘두 가지’로 현상이 일어난다.
4. 자기 육이 생시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면, 꿈에도 어떤 상대와 사랑하는 꿈이 꺾이기도 한다. 또 하나님이 어떤 상대와 사랑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 주시며, “이같이 사랑한 것과 다름없다.” 하며 교훈으로 계시해 주실 때도 있다.
5. <스스로 자의에 의해 꺾이는 꿈>은 ‘자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말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꿈>은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6. <자기만 좋아하다가 꺾이는 꿈>은 ‘심리에 의한 꿈’이며 ‘짝사랑 꿈’이다.
7. <육성의 꿈>이 있고, <영성의 꿈>이 있다. 자기 육이 생시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니 그에 따라 꿈이 꺾일 때가 있다. 이것이 ‘육성의 꿈’이다. 혹은 하나님과 성령이 계시하시어 꿈이 꺾이기도 한다. 이것이 ‘영성의 꿈’이다. 항상 <두 가지>로 ‘답’이 온다.
8. 가령 자기가 어떤 상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니, 자기 생각과 행위에 의해서 같이 사랑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자기 혼자 사랑해서 꾸는 꿈이면, ‘심리적인 꿈, 짝사랑 꿈’이다. 혹은 상대의 혼이나 영과 같이 사랑해서 사랑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이 꿈이 ‘계시’이며 ‘영몽’이다. ‘실체적 꿈’이다. 늘 언제나 ‘분별’이 필요하다.
9. 자기 육이 생시에 산에 가면, 심리에 의해 그런 꿈이 꺾이기도 한다. 이런 꿈은 ‘심리적인 꿈, 짝사랑 꿈’이다. 혹은 삼위일체가 산으로 실체적 계시를 주실 때도 있다. 이 꿈은 생시에 이루어진다. 이런 꿈을 ‘계시의 꿈’, 혹은 ‘영몽’이라고 한다.
10. 요셉은 ‘상징’으로 꿈을 꿔다.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 꿈은 ‘스스로 원해서 꾸는 짝사랑 꿈, 심리적인 꿈’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시의 꿈’이었다.
11. 자기 육이 삼위를 진정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살았더니 꾸는 꿈은 거의 ‘짝사랑 꿈’이 아닌 ‘계시의 꿈’이다.
12. 과거에 꾸는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겪어 보니 하나의 꿈에서 끝난 것도 많다. 이는 ‘짝사랑 꿈’이기 때문이다.

13. <삼위의 계시의 꿈>이어야만 ‘생시’에 이루어진다.

14. 선생이 어릴 때 꾸 꿈 중의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한 줄로 쭉 서서 면담하는 꿈을 꿔다. 이것은 내가 생시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그 후 삼위와 함께 섭리역사를 펴게 되었고 어느 날 섭리사 한 집회에 갔는데, 그 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나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그제야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꿈을 꾸 지 20년이 넘어서 꿈이 이루어졌다.

15. 이 잠언을 쓰는 날 새벽에 잠을 자는데, 섭리사 사람들 몇 명이 내게 와서 나를 불렀다. 그 소리에 깊은 잠에서 깬다. 실제 섭리사 사람들의 혼들이 와서 나를 깨운 것인지, 연극처럼 그런 영적 현상을 꿈으로 꾸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신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꿈 이야기, 대화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궁금하면 물어라.” 하셨다. 이에 하나님이 영적인 현상을 연극처럼 만들어서 꿈을 꾸게 하여 깨운 것이면 하나님이 깨워 주셨으니 좋지만, 혹시나 섭리사 사람들의 혼들이 내게 왔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가 ‘답’이다. ‘자의에 의해 스스로 꺾이는 꿈’이 있고, ‘계시에 의해 꺾이는 꿈’이 있다. <자의에 의해 스스로 꾸는 꿈>은 ‘짜사랑 꿈’이고, <계시로 꾸는 꿈>은 ‘실체적인 꿈’이다. 고로 이루어진다.” 하셨다.

16. 상대가 좋아서 사랑하고 잘 대해 줬던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 것들이 많다.

17. <동쪽에서 보는 것>과 <서쪽에서 보는 것>이 다르듯이, <육계에서 육들이 보는 것>과 <영계에서 영들이나 혼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르다.

18. 가령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 죽어서 묘지를 만들어 놓고 <육들>은 세상 떠난 날을 기념하며 귀히 대하지만, <영들>은 그것을 그리 귀히 안 본다. 영의 세계에 가면 ‘영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고로 육계에 잘 오지도 않는다. 완전히 다르다. 마치 <새 집>을 짓고 다른 세상으로 살러 가면 <옛날에 살던 집>에 거의 안 가는 것과 같다.

19. <영들>은 ‘영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영>은 ‘영’으로 대해야 된다.

<2016년 12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20.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은 모른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시대>가 왔으니, ‘행하는 자’만 얼마나 좋은지 안다.

22. <행하는 자>만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의 연속’이다.

23.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삼위와 주와 같이 행하며 기뻐하는 자에게만 기쁨도 희망도 쉬지 않고 연속된다.

24. 과수원 축복을 줬으면, 열매를 한 번만 따먹고 과수원을 버리고 끝내면 되겠느냐. 해마다 퇴비하고 가꿔서 해마다 열매를 거둬야 된다. 그래야 기쁨과 희망이 연속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축복해 주신 것>도 한번, 혹은 몇 번 기뻐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삼위께 영광 돌려라. 그래야 기쁨도 희망도 연속된다.

25. 결혼하고 혼인 잔치날만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고, 매일 계속 사랑하고 감사하며 대해야 매일 기쁨과 사랑이 연속된다. 이와 같이 <삼위가 해 주신 것>을 매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으로 쓰면서 삼위와 대화하며 잔치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받을 때’뿐이고 ‘몇 달’만 생각하며 즐거워할 뿐이다. 잊으니, 기쁨도 떠나도 희망도 떠난다.

26. 월명동을 생각해 보아라. 과거에는 서울에 모일 곳이 없어서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모이고, 공원에서 모였다. 그때 수백 번, 수천 번씩 기도하기를, 아예 우리가 거할 곳을 달라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자연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보화같이 얻는 곳이다. 자꾸 사연을 듣고 가치를 알아야 된다. 월명동의 값을 아는 자가 있는가, 생각된다. 거기서 <영원히 잘되는 휴거 역사>를 했다. 이와 같이 과거에 쓰던 것이 불편해서 정말 좋은 것을 달라고 간구하니, 하나님은

월명동같이 또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여라.

27. <새로 산 성전>도 그러하다. 과거를 생각하며 매일 삼위 앞에 ‘새 성전’을 주심에 감사하고, 보람 있게 귀히 여기고, 매일 삼위와 대화하며 살아라. 그래야 기쁨과 희망이 찬란하여 매일 기쁘다. 그런데 ‘첫사랑의 기쁨과 감사’를 잊으니 교회가 발전이 없고, 삶에서 기쁨이 떠나고, 생각에서 삼위도 주도 떠나 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과거의 사연>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상해서 축복도 안 해 주신다.

28. <매일 사랑하는 자>만 ‘매일’ 사랑을 느끼고 보람이 있고, 그로 인해 ‘이상적인 사랑의 차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매일 삼위와 주를 생각하고, 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대화해라.

29. 매일 먹을 식사를 만들듯이, 노력해서 진수성찬을 먹듯이, 매일 삼위와 주와 대화하며 ‘대화의 잔치’를 하고, 매일 삼위와 주와 행하고 사랑하며 ‘사랑의 잔치’를 하고, 매일 삼위와 주가 해 준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잔치’를 해라. 그래야 매일 기쁨과 희망과 사랑이 연속된다.

30. 줘도 그때만 잠깐 좋아하고 판이 식으면, 신뢰를 잃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주신다. 그리고 전에 준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든지, 심심해하며 살든지, 그냥 두신다.

31. 몸부림쳐 좋아하고 만들고, 몸부림쳐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아라.

32. 마음과 생각에 기쁨이 없으면, 지구를 다 줘도 보통 희망과 기쁨으로 살게 된다.

33.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도 잠깐 기뻐하다가 판이 식어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심정 상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래도 말씀으로 불을 못 붙이면, 불 붙여 보람 있게 살라고 가물게 하시고 찬바람 불게 하신다. 그제야 비닐을 쓰고 다니며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닫는다.

34. <무지>가 ‘흑암’이 되게 하고, ‘마귀 집’이 되게 한다.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머리 외에는 다 지체다. 단, 어떤 지체냐에 따라서 ‘머리의 일’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다.

2. <주>는 ‘머리’다. <주가 한 것>은 ‘영적’이고, <지체가 한 것>은 ‘육적’이다.

3. 지체라도 <주를 머리로 삼고 한 것>은 ‘영적’이다.

4. <주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여 주와 함께한 것>은 ‘영적’이다.

5. 누구든지 머리 되는 <주의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육적’으로 한 것이다.

6. <주와 일체 된 자>는 ‘주의 생각에 속한 자’다. ‘영적인 자’다.

7. 주와 일체 되어 주를 머리로 삼고 주의 생각으로 했느냐, 자기 생각으로 했느냐, 이로써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를 알게 된다.

8. 자기가 신령하여 스스로 영에 속해 행해도 <머리 되는 주>를 떠나서 행하면, 그 역시 ‘육에 속한 자’다. 이런 자는 ‘머리 없이 몸만 가지고 있는 자’와 같다.

9. 사람 자체로 볼 때 <머리>는 ‘영’이라 하고, <지체>는 ‘육’에 비유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따르는

자들>은 ‘지체’와 같다.

10. <주의 말씀>이 ‘머리’다.

11. <머리로부터 온 말씀>이 곧 ‘영적인 말씀’이다.

12. <지체의 말>은 ‘육에 속한 말’이다.

13.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지체>는 ‘평생 지체’다. <주의 말>이 ‘영적’이다. 그래서 <말씀>은 ‘영적’이다. <말씀>이 ‘육’이 되어 나타났다. <주의 육>은 ‘말씀’으로 나타난다.

14. <자기 생각>대로 ‘육적’으로 행하면서, <주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행한다고 한다. - 역시 ‘육에 속한 자들’이다.

15. <주가 머리 되어서 지체를 통해서 그대로 한 것>만 ‘영적’이다.

16. 지금 ‘머리의 생각’을 ‘손’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 이 잠언들이다. 이 지체는 100% 영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머리 되는 주의 생각과 일체> 되어 <자기 생각을 비우고 주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는 자가 ‘영적인 삶’을 사는 자다.

17. <자기 혼자 기도하며 신령한 삶을 사는 자>는 ‘영적’으로 사는 자이지만, ‘영의 근본’에 속하여 사는 자는 아니다. <머리 되는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자>가 ‘근본의 영적인 자’다.

18. 영적으로 기도도 잘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도 섭리사를 나갔다. 자기 혼자 육에 속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머리에 붙어서 머리와 일체 되어 행했으면, ‘머리 되는 주’가 섭리사에 있듯이 그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는 ‘주의 생각’과 달라지게 된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육적’이다. 그러다 결국 ‘인(人)사탄’이 된다.

19.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생각이다.” 하는 자들이 있다. 머리에 물어보아라. 아니면 “아니다.” 하고, 맞으면 “맞다.” 한다.

20. 목회도 ‘머리의 생각’대로 안 하면, 머리가 그 지체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

21. 머리의 생각대로 안 하는 자가 있기에, 머리가 그 지체를 그 사명지에서 내려오게 하고 말하기를 “주는 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지체를 쓴다. 머리는 지체가 머리의 생각대로 했는지, 그 행위를 보면 안다. 너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고쳐라! 그럼 또 쓰겠다.” 했다. 그러고 나서 오랜 후에 그 지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일을 맡겨 주세요.” 하며 오랫동안 간구했다. 그러던 중 ‘주의 몸인 한 교회’가 나와서, 그 지체에게 맡기며 “이 교회 목회를 한번 해 보자.” 했다. 그러나 ‘전에도 모순되게 행하던 것’을 아직도 못 고치고 목회를 했다. 고로 지체로 쓸 수가 없었다. 머리 되는 주는 그 지체를 정말 쓰고 싶은데, ‘안 고치니’ 못 쓰게 됐다. 머리가 쓰고 싶어도 머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설교 때도 강의 때도 행사 때도 안 쓴다.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22. <자기>가 안 하면, <머리인 주>도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섭리사 모든 자들이 다 ‘주의 지체들’이다.

23. <다 큰 자들>이 못 하면, 섭리사의 일들을 못 한다고 생각하느냐. <10대들>이 더 잘한다. 왜? 그들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24. ‘내가 섭리사를 나가면, 다른 사람은 못 하겠지.’ 하면서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있다. 그들이 나가니, ‘남은 지체들’이 더 잘했다.

25. 축구 하다가 <오른발>을 다쳤다. ‘이제 축구 못 하겠지.’ 했다. 그 후 계속 <왼발>로 연습하고 연마하니, 6개월 만에 오른발보다 볼을 더 잘 차게 되었다. 이제 <왼발>이 ‘주체’가 되었고, <오른발>이 ‘대상’이 되었다. 이를 알고 해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안 하면 못 하겠지.” 해도 머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다.

26. 섭리역사도 <시대 세레 요한>인 ‘기성’과 <섭리역사 앞에 세레 요한 격>인 ‘전초자’가 기대대로 못 했다. 그들이 없으면 안 될 줄 알았겠지만, <시대 주를 알고 따르는 자들>이 ‘주의 지체’가 되어서 ‘휴거’까지 다 이뤘다. 그들이 했으면, 자신들도 이 역사에 참여하고 증거하며 같이 영광을 얻고 같이 역사를 펴니 자기들만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못 했으니, 자기들만 손해가 갔다.

27. 선생의 가정에서도 <기성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가정의 형들>이 못 하니, 하나님은 <어린 동생들>을 키워서 ‘형들이 못 한 것’을 하게 하셨다. 그들이 ‘머리의 지체 역할’을 해 주었다.

28. <일을 맡긴 자들>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육적’으로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린 자들>을 키워서 오직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영적’으로 하게 하시며 섭리역사를 펴 오셨다.

29. <본래 지체들>이 ‘육적’이라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 그들만 못 하고 끝나게 되었다. 머리는 <후대들>을 키워서 다 했다.

30. 선생의 가정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했던 자>가 ‘큰형’이었고, <제일 육적이라고 했던 자>가 ‘범석’이었다.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 하나님은 ‘육적인 자’를 신령하게 만들어서 머리와 일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쓰셨다. 신령하다고 한 자는 실상은 신령하지 못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최고로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이 ‘기성인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신령하게 행하시는 것’을 몰랐다. 고로 하나님은 ‘최고 육적이다 하는 자들’을 키워서 ‘최고 영적’으로 귀히 쓰셨다. 곧 <섭리역사를 따르는 자들>이다. 머리인 주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운명이 뒤바뀐다.

31. 신약시대의 <사울>은 지극히 ‘육적’이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을 깨닫고 ‘영적인 자, 사도 바울’이 되었다.

32. 이전에도 <머리>가 행했지만, 섭리사의 때가 되니 이제는 더욱 <머리>가 행한다. 고로 모두 더욱 ‘머리와 일체’되어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머리’와 안 맞으니 틀어서, ‘다른 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한다. 그러면 ‘머리’와 먹고 마실 수 없게 된다.

33. <머리>는 ‘그 일의 머리’가 되어서 ‘지체’를 쓰고 하고 싶어 한다. 고로 <지체>가 ‘머리의 생각’대로만 해야지 <지체>가 ‘머리’가 되어 행하면, 삼위도 주도 상황을 틀어서 그 지체를 안 쓰신다. 모두 이것을 알고 행해라. 머리의 생각대로만 하면, 주의 즐거움에 항상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랑을 받게 된다. <때>는 지나가면 끝나고, <주의 생각대로 한 자>가 ‘주인’이 된다.

34. <머리>도 ‘삼위일체의 지체’다. 고로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횡수 상관없이 삼위께 묻고 행한다. 그런데 <지체>이면서 ‘자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 사람은 안 쓰신다.

35. 어떤 지체는 말하기를 “저 지체는 내 마음에 안 들어.” 한다. 왜 그럴까? 육적이라서 그렇다. 실상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그 지체는 ‘머리와 일체 되어 성령과 함께 행하는 자’다. 그러나 자기가 머리와 안 붙어 있으니, 자기 생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36. 섭리사에서 <주의 지체>가 누구냐. <신세대>가 누구냐. 누구든지 ‘주와 일체 되어 주를 머리로 삼고 하는 자들’이다. 나이는 상관없다. 나이 든 자도, 어린 10대도 <머리와 일체 되어 하는 자>가 ‘주의 지체’이며 ‘신세대’다. 삼위와 주는 ‘그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 나간다.

37. 머리를 제일 속 썩이고 고통받게 하는 자들이 있으니, ‘머리와 일체 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고 행하는 자들’이

다. 그러나 <머리>는 이미 알고 '성령과 능력'으로 틀어, 같이 못 하게 한다.

38. 역사가 깨진 이유는 '지체이면서 자기가 머리 되어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만 깨졌지, <하나님의 역사>는 주와 함께 다른 지체를 통해 행하여 이루고 마셨다.

39. 지금은 <섭리사 110일 기도 기간>이다. 이 기간에 '자기라는 지체가 머리인 주와 일체 되는 기도'를 해라. 말로는 모두 주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지체가 되어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꼭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것'도 넣고서 한다. <머리와 완전히 일체 되지 않은 것>은 헛고, <온전히 주를 머리로 한 것>만 역사에 남겨라. 개인의 일, 교회의 일, 섭리사의 일 모두 항상 '머리와 일체' 되어 해라. 그래야 주인 되어 주와 같이 쓰고 즐기며 역사를 편다.

<2016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40. <꿈>을 꾸고 나서 풀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꿈>은 '계시'이니, 하루 종일 생활하다 보면 그 날에 해당되는 꿈은 제대로 풀린다. 이렇게 풀면, 꿈을 더 지혜롭게 풀게 된다. 이와 같이 <주 머리>로 했는지, <자기 생각>으로 했는지 행한 후에는 알게 된다.

41. <자기 추측과 예측>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러나 <추측하고 예측한 것>을 실제로 행해 보면 얼마나 맞았는지, 얼마나 틀렸는지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주 머리>로 했는지, <자기 머리>로 했는지 해 보면 알게 된다. 대개 '추측'이 많다. 자기는 '머리의 뜻이겠지.' 추측하고 행하지만, 얼마나 머리의 생각과 맞는지 머리에 물어보아라. <온전치 못한 것>은 결국 드러나서 모두 알게 되고, 다른 지체들이 인정도 안 하고 신임도 안 해 버린다.

42. <머리 되는 주>가 아닌 <자기 머리>로는 '구원받을 자'도 없고 '시대 휴거를 이룰 자'도 없다. <구원과 휴거>는 오직 '주'로 말미암아 된다. 고로 '자기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머리와 멀어져서 영광이 감소되게 된다.

43. 지금은 시대 신부들이 휴거되었고 성장했다. 모두 '개성의 왕들'이 되었다.

44. <머리와 일체 되어 행하는 지체>가 '개성의 왕'이다.

45. 섭리사의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하여 행하는 것'을 보아라. 자기는 못 하고 있지만, 다른 지체들이 하는 것을 못 보았느냐.

46. 주의 신임을 받는 자가 주께 말하기를, 누가 육적으로 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 보기에 그는 100%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한 자였다. 주의 생각은 다르다. 고로 자기 머리 굴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주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47. 목사이고 지도자인데 '지극히 육적으로 하는 자들'이 많다. 고로 '어린 자들'을 경히 대한다. 실상 그들은 '어리지만 알고 행하는 영적인 자들'이다. 본인이 모르니, 모르는 관으로 보는 것이다. 주를 머리로 하고 행하는데,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다.

48. 성령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 성령을 받아도 '은혜에 속해 살고 마는 자들'이 있다. 이는 '성령의 본 뜻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성령을 받았으면 '주를 증거'해야 된다.

49. 진짜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대로 '주'를 온 땅에 증거하고 다닌다.

50. 증거자들이 제대로 모르면, 성령을 받아도 일반 신앙생활만 한다.

51. <보낸 자>를 증거해야, <보낸 자>가 '삼위일체'를 증거하여 모두 제대로 알게 한다.

52. 목회자들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 <머리>는 ‘오직 주 하나’다. 목회자들도 ‘지체’다. 목회자를 ‘머리’로 알고 행하는 자들은 다 속는다.

53. <머리>는 ‘오직 주 하나’뿐이라는 것을 늘 가르쳐라. 그리고 <머리>는 ‘오직 주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고 행해라. 은근히 자기를 머리화하며 중심하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그런 지도자는 결국 주가 쓸 수 없다.

54. 교회마다 목회자가 머리같이 하고 있는지 보아라. 주와 일체 되어 행하지 않는 목회자는 ‘자기 의견,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행한다.

55. ‘이것이 주의 생각이다.’ 추측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어 모두 알게 하신다. 그 때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56. 목회를 내보내 달라고 그리도 간구하여 내보내 주면, 아쉬울 때만 소식을 보내며 이야기한다. 그러다 소식조차 없이 목회한다. 그런 자는 ‘마지막 목회’가 될 것이다.

57.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그릇된 생각들>은 ‘틀어서’ 못 하게 하고, <그 욕>은 ‘쳐서’ 못 하게 한다.”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쳐 달라.’고 간구할 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 “<생각>은 때리지 못하니 ‘틀어서’다스리고, <욕>은 ‘때리고 쳐서’ 다스린다.”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깨달아라.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58. 주와 의논하고 행할 때 ‘자기 생각’을 섞지 말아라. 그러면 성령이 보시고 양심을 지적하시고, 보고자를 통해 보고하게 하여 모두 알게 하신다.

59.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일을 맡기면,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어 있다. 고로 머리가 해라.” 하셨다. 고로 머리는 일을 맡기고, 계속해서 주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본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것들이 들어 있다. 고로 안 믿는다. 이제 모두 ‘머리’가 한다. 섭리사 어떤 모임도 행사도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말씀>이 없으면 ‘머리 없는 지체 모임’이다.

60. 머리는 일을 맡기기만 하지 않는다. 맡기고 확인한다. 성령과 주의 영이 늘 가서 보고, 계시자들을 통해 다 본다.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 때문에 섭리사 생명들이 유실되고, 본인도 자기 뜻대로 하다가 섭리사를 나간다. 그러니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행하고 ‘자기 머리’로 욕적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나.

61. 섭리사의 누구든지 다 ‘지체’다. <지체>를 ‘머리’로 알고 대하는 자는 다 속는다.

62. 지체는 머리와 1대1로 통하며 자기 사명을 해라.

63. 어린 자들도 머리와 1대1로 통하며 일체 되니, ‘주의 지체’가 되어 <주>가 ‘그 몸’을 쓰고 다니며 행한다.

64.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다가 때가 되면 임기가 끝난다. 그러나 <머리>는 ‘영원히 머리 역할’을 한다. <욕>으로는 욕 평생, 성약 1000년 역사 기간 동안 머리가 되어 주고, <영>으로는 천국에 간 자들 앞에 왕이 되어 삼위를 중심해서 영원히 머리가 되어 다스린다.

65. <천국>은 욕계와 체제가 달라서 욕계의 부모, 부부, 형제들이 더 이상 자기 부모, 부부, 형제가 아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체제’로 운영된다. <영의 세계>와 <욕의 세계>는 아예 다른 체제다. 욕의 세계에서 사랑하는 자였다고,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과 같이 사랑하며 아끼고 살겠느냐. 비유로 말하면, 군인이 제대하면 더 이상 ‘군 체제’로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영의 체제>는 ‘욕의 체제’가 아니다.

66. <영>은 육이 농사짓고 돈 벌고 장사하듯이 하지 않는다. <영>은 ‘영의 조직’으로 산다.

67. 세상에서 ‘자기 교회 목회자’를 좋아하면, 그 사고에 따라서 그 영도 ‘그 주관권’으로 가게 된다. <110일 기도 기간>에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라. 주를 완전히 자기 머리로 삼아라. 자기 추측과는 틀리다. 아니다. 자기 추측대로 하다가 끝나고 나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도, 그때는 다시 못 한다. 고로 지금 제대로 확인하고 주와 일체 되어 해라. 자기 추측대로 하다가는 ‘큰일 날 일’도 좋아하며 한다.

68. 자기가 기도하여 “성령의 뜻이지요?” 하면 “그렇다.” 한다. 그러다 하루 종일 살아보면서 그 말대로 안 되어 있으면, ‘자기 주관적 생각과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과 주의 생각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아니었다. <추측>과 <실제>는 다르다.

69. 대통령도 당선되지 않으면 패배를 인정하듯, <주의 뜻>을 알았으니 <자기 생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 생각>을 틀고 <그 몸>을 치신다.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모두 해당된다. 항상 잘하다가도 ‘자기 육성’으로 ‘자기 영성’을 짓몽갠다. 그러다 주의 말이 선포되면 머리 되는 주와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영이 “그것 봐라. 육의 생각이 그렇다.” 한다.

70. <지체>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깨닫고, <지체>는 머리와 일체 돼 있으면 느끼는 것이다.

71. <주>는 ‘머리’요, <따르는 자들>은 모두 ‘지체’다. <머리>는 ‘직접 엄청’ 느끼고, 지체는 ‘조금’ 느낀다.

72. <주>는 ‘직접’ 보고 듣고 알고, <대상>은 ‘느낌’으로 안다.

73. 지도자들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보아라. <성령>은 주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다.

74. <110일 기도 기간>에 ‘성령의 계시를 받아 보는 단계’까지 올라가 보아라.

75. <110일 기도 기간>에 기도하는데 뭐하느냐. 이때 열심히 기도하여 자기 모순을 고치고 해결해라.

76. 하다가 말지 말아라. 끝까지 해라. 될 때까지 해라. ◎ 이제 <110일 기도 기간>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일과 토요일에 <기도 기간>에 정말 필요한 잠언을 또 말씀해 줄 것입니다.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죄를 지으면,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죄를 지은 자>는 회개하고, <성령>은 감동을 주고, <주>는 그 이름으로 돕고, <하나님>은 용서하여 없애 주신다.

2. 방 안의 쓰레기, 거실의 쓰레기, 주방의 쓰레기 등 집안 청소를 다 하듯이 회개해야 된다.

3. 본인이 빨래할 옷을 벗어 줘야 빨래해 주듯이, 본인이 회개해야 삼위도 주도 그 회개를 받고 같이 없애 주신다.

4. 매일 밥 먹듯이 잠자듯이, 꼭꼭 ‘죄를 회개’해라.

5. 몸에서 배설물을 버리듯이, 꼭꼭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먹고 배설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꼭 차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고로 모두 드러나게 된다. 빨리 회개해라.

6. 왕이라도 회개를 안 해서 배설물이 입으로 나오니 모두 드러나서, 온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알고 거리에서 시위하며 회개하라고 한다. 회개해도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고 한다. 모두 이와 같으니, 꼭 회개해야 된다.

7. 궁궐같이 좋은 집이라도 청소를 안 하고 방에, 응접실에, 정원에 쓰레기들을 늘어놓고 살면, 현 집에서 사는 것 같

다. 저마다 '신앙'도 그러하다.

8. 매일 이를 닦듯이, 매일 '회개'로 청소해라. 그래야 '죄'로 인해 인생이 썩지 않는다.

9. 청소 안 하면 냄새 나고, 썩고, 벌레가 생기고, 세균이 득실댄다. 그러다 해충이 몸에 달라붙어 자기 살을 뜯어 먹어 병들고 괴롭게 된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하다. <죄>로 인해 얼마나 해를 당하는지 알면, 당장 <회개>할 것이다.

10. 깨끗해야 자기 집과 방 같은 '자기 마음'에 '성령'이 오신다.

11. <신부>는 '깨끗함'이 아름다움이며 신비함이다.

12. 얼굴과 몸이 예뻐도 더러운 옷을 입고, 안 씻어서 냄새가 나면 누가 가까이하겠느냐.

13. 얼굴 예쁜 거지가 길에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니 옷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 모두 도우러 왔다가 멀리 떨어져 피했다. <신앙의 신부들>도 그러하다. 욕이 진짜로 예쁘고 멋진 여자와 남자라도 '죄'를 행실로 회개하지 않아서 영이 더러우면, 냄새가 나서 가까이 지내고 싶어도 접근할 수가 없다.

14. 거지라도 썩는 냄새 없이 깨끗이 하고 있으면 길을 가다가 바로 도와주듯이, 신앙을 깨끗이 하여 죄가 없으면 하나님도 도우시고, 땅도 돕고, 형제들도 돕는다.

15.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방에 개미가 집을 짓고 방의 흙을 파내어 산같이 쌓아 놓고 산다. 영적으로 보면 보인다. 신앙의 할 일을 하고, 죄를 회개하여 없애고 깨끗하게 해라. <110일 기도 기간>에 먼저 100% 자기 것을 깨끗하게 하라. 연말까지 하여라.

16. <사탄을 이기고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할 일>은 '회개'다.

17. <회개>는 '구원과 휴거의 필수 과목'이다. <빛>을 갇지 않고서는 '빛의 감옥'에서 못 나가듯이,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의 감옥'에서 못 나간다.

18. <회개>같이 '좋은 것'도 없다.

19. <씻어야 될 자>에게 '목욕탕'같이 좋은 것이 없다.

20. <씻어야 될 자>에게 '물'이 없고 씻어야 될 자가 '목욕탕'을 찾아도 없다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 그러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기 목욕탕 있어요. 간판 없이 가정집처럼 생겼어도 목욕탕이에요." 하고 같이 데려가서, 때를 밀어 주며 깨끗이 씻게 해 주었다면, 그는 '구세주 역할'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주>는 '사명자'로 왔으니 회개하라고 늘 외치며 가르쳐 준다. 그리고 같이 때를 밀어 주듯, 같이 회개해 준다. 때가 지나면, 목욕탕 문을 닫게 된다.

21. 깨끗이 씻고 다니면 뽀뽀하고, 신사와 숙녀가 된다.

22. 집도 더러우면 미친개가 들어와서 배설하고 가고, 깨끗하면 벌과 나비가 날아든다.

23. <110일 기도 기간>에 자기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라.

24.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해 더럽고 단장이 안 되어서, 성령이 가셨다가 그냥 돌아오기도 한다.

25. 헛 집도 청소하고 보수하면 '새 집'같이 된다. <마음의 방, 마음의 집>도 그러하다.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26. 작은 방도 청소하고 정리하면 커진다. <마음의 방, 마음의 집>도 그러하다.
27. 옛집은 아무리 정리해도 옛집이다. 기성도 그러하다.
28. 청소하면, 집이 고급스러워진다. 신앙도 그렇다. 회개하고 깨끗이 살면, 고급스러운 자가 된다.
29. <만들기>에 따라 ‘자기 인생을 평가’ 받는다.
30. 꿈에 ‘자기 인생의 집’이 어떤 집인지 보아라.
31.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여 자기 집을 고급스럽게 단장하는 자가 있고, 아예 다시 멋지게 짓는 자도 있다. - 신앙도 저마다 하기에 달려 있다.
32. <자기 자신>은 ‘자기가 사는 집’과 같다. <자기 신앙>도 ‘자기 영적 집’과 같다. 깨끗하게 해라. 새로 멋있게 지어라. 주의 말씀으로다. 주의 생각으로다.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33. 청소는 할 때 깨끗이 하듯이, <회개>도 하다가 말지 말고 ‘깨끗이 할 때 아예 깨끗이 하기’다.
34. <하다가 마는 자>는 몸 한쪽은 씻고 한쪽은 안 씻는 것과 같아서 보는 자들도 꼴꼴하고, 자신은 더 꼴꼴하다.
35. 목욕탕에 갔다가 반만 씻고 오면, 안 씻은 쪽은 간지러워서 못 견디게 된다. <회개>도, <인생의 할 일>도 모두 꼭 해야만 된다.
36. 하다가 말면, 목적지에 못 간다.
37. 사랑도 하다가 말면, 과거에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
38. 월명동도 할 일을 다 해야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신비함이 다 드러나게 된다.
39. 끝까지 하되, ‘할 일을 다 하기’다.
40. 하다 말면, 한 만큼만 된다.
41. 삼위는 하다가 말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녕코 해라.” 하셨다.
42.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정녕코! ‘새 일’도 하시고, ‘그때마다 할 일’도 하시고, ‘마지막 휴거 역사’도 하고 마셨다.
43. <하다 마는 자>는 ‘아기가 나오는 중에 해산을 중단한 여자’와 같다.
44. <하다 마는 자>는 지붕만 덮으면 들어가서 사는데, 지붕을 안 쳐서 겨울에 천막 치고 사는 자와 같다.
45. <하다 마는 자>는 ‘보화가 묻힌 밭까지만 사고 마는 자’와 같다.
46. <깨끗이 다 회개하고, 끝까지 할 일을 다 하는 자>가 ‘보화까지 얻는 자’다.
47. <하다가 마는 자>는 아홉 개의 산을 넘었고 한 개의 산만 더 넘으면 소원 성취되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자

와 같다.

48. 하다가 말면, 극적인 기쁨이 솟아나지 않는다.

49. 샘을 파다가 말면, 흙탕물만 나온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할 일'을 두고, 모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꺼리는 것'을 두고, 모두 회개해야 된다.

50. <하다가 만 자>는 '만들어지다가 만 자'와 같다. 눈도 반, 코도 반, 입도 반, 귀도 반, 각 지체도 반씩만 형성된 자와 같다. 이와 같이 신앙도 하다가 말아서 완성되지 않으면, '미완성 신앙인, 불구자 신앙인'이다.

51. 할 말도 하다가 말면 모르니, 그 말을 듣고 뭘 해 줄 수가 없다.

52. 차도 만들다가 말면, 쓸 수가 없다. 반만 만들어도 못 쓰고, 90%만 만들어도 못 쓴다. 100% 만들어야 쓰게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53. 글씨 한 자도 쓰다가 말면, 무슨 글씨인지 모른다.

54. 잠언도 깨닫다가 말지 말고, 끝까지 깨달아야 된다.

55. <할 일을 하다가 마는 자>같이 '모자란 자'도 없다.

56. <할 일을 하다가 마는 자>는 '생각이 모자란 자'다.

57. 대둔산 용문굴 바위 절벽에서 기도하는데 비가 오나 더우나 배고프나 하다가 말지 않고, 다 기도하고 내려와서 시대 복음을 전했다.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악평하고 반대해도 하다가 말지 않고, 다 전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하니, 하다가 말지 않았다. 삼위일체는 보낸 자와 함께 끝까지 할 것을 다 하여, 성자가 다시 오신 지 70년 만에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58. <휴거>는 남녀가 다 커서 연애하고 결혼한 것과 같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보낸 자와 함께 끝까지 해야 "휴거됐다."라고 표현한다.

59. 딴 데서는 "휴거됐다."라는 말을 못 쓴다. 쓰면, '거짓'이 되고 '죄'가 된다.

60. 하다가 말았는데 휴거되는 자는 없다.

61. <구약과 신약>은 '과정'이다. <성약역사>가 와도 시대 말씀을 듣고 주를 따라 성장하고 만들어 완성해야, 그제야 '휴거 말씀'을 준다. 그 말씀을 듣고 완전하게 행해야 '휴거'된다.

62. 어린아이 때는 '결혼'이라는 말을 안 한다. 다 커서 결혼하기 직전에 '결혼'이라고 한다. <휴거 역사>도 그러하다. 먼저 '시대 구원자'가 와서 시대 성약 복음으로 삼위와 함께 '성약의 신부들'을 낳고, 그들이 크면 그제야 '휴거 말씀'을 주어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휴거'시킨다. <휴거>는 삼위와 시대 주와 일체 되고 '사랑의 신부'가 되어 '황금성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63. 할 일을 다 해야 완성되어 기쁘고 흥분되고,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고, 삼위와 주께도 영광이 되고, 이상세계가 된다. 완전하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과정의 기쁨이다.

64. 월명동도 '다 만든 곳'만 100% 쓰고 찬란하게 빛난다.

65. 올해는 '저마다 목적인 것을 두고 도전하여 끝내 하기'다.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네 희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미 과거에 해 보았는데, 또 <육에 속한 것>에 네 희망을 두느냐.
2. <영에 속한 것>에 네 희망을 두고, <삼위일체가 원하는 것>에 네 희망을 뒤라. 그래야 '육의 것'도 '영'에 속해 같이 이루어진다.
3. <육에 속한 것>은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어도 임기 4년, 5년, 8년이다. 그나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갈 길을 막고, 에덴에서 쫓아내신다.
4. <육에 속한 희망>은 하나님이 보실 때 '순간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먹고 순간 배부르고 끝난다.
5. <육에 속한 이성 사랑, 세상 사랑>은 모두 '한때 한순간'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간다.
7. <영에 속한 일, 영에 속한 삶>은 '영'에게로 가니 '영원히' 간다.
8. 순간이면 끝나는 <육에 속한 삶>을 가지고 '영'을 위해 살고 '영적인 극한 사랑'을 위해 쓰면, <자기 영>이 그 영향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고 살게 된다.
9. 비유컨대,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진수성찬'을 먹은 자는 먹은 그날로 끝난다. <그 돈>을 가지고 '금반지'를 산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일생 동안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돈과 같은 <자기 몸>을 가지고 '육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만 쓰고 '육체의 사랑'에만 쓰고 살면 순간 먹고 배부르고 즐기고 끝나지만, '영'을 위해 살면 금반지를 산 것과 같아서 신앙을 잃지 않고 가면 영원한 것이 된다.
10. <자기 육신>을 '돈'으로 생각해라.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일순간 누리고 끝나느냐, 영원히 누리느냐'가 좌우된다.
11. 매일 <자기 육이라는 돈>을 가지고 '삼위를 중심'하여 귀히 써라.
12. 월명동을 보아라. <몸>과 <물질>을 가지고 순간 쓰고 없어질 것에 안 쓰고, 당대와 후대까지 1000년 동안 쓰고 누리게 '자연성전'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육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만들고, 영에 속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누리고 쓴다.
13. <육에 속한 육체 사랑>은 평생 해도, 순간 음식 먹고 끝나듯 남는 것이 없다. 고로 <영>도 변화되지 못하여 빈손으로 허둥지둥 희망 없이 살아가고, 반겨 주는 자 하나 없는 흑암 사망으로 가게 된다. 삼위와 주를 떠나서 '세상'을 위해 산 만큼, 그 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사망의 것만 가지고, 수백억 년씩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육신이 할 수 있는데도 고생되고 힘들다고,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영'에 속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14. <육>이 '육'에 속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만큼, <그 영>은 점점 더 '사망의 영'이 되어 '썩은 살'이 찢어 산다.
15. 하나님 주권을 떠나서 세상에서 누리며 육에 속해 사는 자는, 보나 마나 <육>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과는 반대로 <영>은 강력하게 흑암으로 쏠려서 '변질된 영'이 되어 간다.
16. 운동하는 대로 근육이 형성되듯이, <육의 생각과 행실>을 따라서 <혼>도 <영>도 형성되고 성장하며 변화된다.
17. 사람이 만드는 대로 되듯이, '육의 생각과 행위'대로 된다.

18. <예리한 생각>이어야 ‘예리한 일’을 한다.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9. 자기 자녀나 형제나 애인이 살아 있는데 잃어버리면 ‘산 자’를 찾아다니게 되고, 죽었다면 ‘죽은 시체’라도 귀히 여기고 찾아다니게 된다.

20. 영계나 육계나 <좋은 기회>를 놓치면, <시체>라도 찾으려 다니듯 갈망하며 산다. 전심을 다해 열심히 살면서 <좋은 기회>를 찾고 잡아라. 잘못하면 <죽은 시체>라도 찾으면 좋겠다는 운명으로 기울어진다.

21. <육신>이 고생돼도 ‘육의 것’을 중심하지 않고 ‘영’을 위해 살면 <영>이 살아 있다. 고로 마치 살아 있는 애인을 부르면 살아 있으니 금방 대답하듯 <자기 영혼>을 부르면 대답하여 금방 찾는다. 반면 ‘육의 것’만 중심하며 산 자들은 <자기 영혼>이 죽어서 찾아도 대답이 없다. 죽은 시체라서 사망에 있으니 대답도 없다. 찾아도 ‘시체’같이 되었으니 시체를 꺼안고 울며 안타까워하다가, 결국 시체를 사망에 묻고 끝난다. 이래서 ‘영’을 위해 살아야 된다. <자기 육>이 ‘육’을 위해서만 살아서 <자기 영>을 죽인 것이다.

22. <자기 육의 생각과 행위>가 ‘자기 영’을 영원히 죽이기도 하고, 영원히 살리기도 한다.

23. <육>이 고생돼도, 새벽에도 낮에도 <자기 영>을 하나뿐인 애인같이 챙기면서 ‘영’을 위해 살아라.

24. <자기 영>을 잔인하게 ‘사망’에 보내 놓고서, 세상을 즐기고 육적인 것을 즐기면서 뭐가 그리 좋다고 희열을 느끼며 사느냐. 제발 깨달아라. <휴거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다.

25. 재벌도, 명예가도, 세상 스타들도, 왕들도 ‘휴거된 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마치 사약을 먹고 마지막으로 즐기는 자들과 같다. 그런데 왜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느냐. 왕들도 다 누리며 살다가도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 하고 산다.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머리로 삼지 않고 사니, 지체들은 모른다. <머리>는 예리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안다.

26. <육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환난’이 온다.

27. <주>를 ‘머리’로 삼고 살지 않으면, 차원이 낮아서 ‘육’이 계속 고통을 받는다. 그로 인해 ‘영’도 영원히 고통이다.

28. <육>은 ‘감각’으로 행하니, 실수투성이다.

29. <육>은 자꾸 ‘느끼는 대로’ 행한다. <생각>은 생각하고 차원 높이 행한다. 고로 ‘육, 살덩이의 감각’으로 행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땅과 하늘 차이다.

30. <육>은 ‘육에 속한 뻔한 생각’으로 생각하고 산다.

31. <육>은 먹고 이성을 취하고 느끼고 즐긴다. 물체의 존재라 그러하다. <영>은 먹고 이성을 취하고 느끼고 즐기지 않는다. 고로 ‘영’으로 살면, ‘육에 속한 것들’이 짝 없어진다. 그 삶이 ‘육’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육의 체질’도 바뀐다.

32. 자기 다스리기다. 왕들도 자기를 못 다스리니 ‘육’으로 흘러서 백성들보다 못하게 ‘땅에 굴러다니는 생각’으로 흘러갔다.

33. 한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을 중심’하면, 끝 날에는 ‘그 행위’가 모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4. 자기 방, 자기 집의 더러운 것을 청소하듯, ‘부정부패’를 없애야 된다. 고로 ‘국가’를 위해 기도해라. <국가>는 ‘자기 것’이다.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 손해다.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섭리세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 것에도 손해가 간다. 기도하면 자기도 유익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국운’이 기울어져서 그 민족이 세월호가 침몰하듯 하게 된다. <국가>는 ‘자기 것’이니, 국가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시고 처리해 주신다. 기도하지 못한 만큼, 이미 손해가 간 것이다.

35. 하나님은 <민족>을 위해 기도한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 드러내고 행하셨다.

36. 전능자를 생각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산 자들이 공의의 심판을 받도록, 자기가 행한 대로 받도록 ‘사명자’는 간구한다. 이에 인생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복’도, ‘화’도 받게 된다.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는 ‘남’이 못 받는다. 자기 행위에 의한 <복>도, <화>도 모두 ‘자기’가 받는다.

37. 온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세계’다.

3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며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다. 모두 기도할 때다.

39. 여우 짓을 하며 산 자들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니, <국가>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모두 결사적으로 기도해라.

40.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환난이 온다. 연말 심판을 한다. 고로 기도해라.” 하시어, <110일 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말씀하시고, ‘악과 썩는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

41. 악인들은 ‘도살의 날’을 앞두고, 그 행위로 살찌게 한다.

42. 자기 안의 여우, 섭리사 안의 여우, 국가 안의 여우가 없어지게 기도해라. 여우들이 많다. 안 돌아다닌 곳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해라!

43. <자기 욕의 행위>로 ‘자기 영’을 ‘사망’에 보내 놓고, <육>은 잔치하는 미련한 자들이다. 너는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2016년 12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이 보인다.

2.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눈에 띈다.

3.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띈다.

4. 각종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띈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이 있으면, 삼위는 그것을 좋아하도록 뇌에다 넣어 주시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

6. 좋아하게 해 줘야 하게 된다.

7. 많은 작품들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띄고 보인다.

8. 좋아해야 보인다.

9. 많은 형상석들이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보인다.
10. 사람이고 어떤 존재물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보인다.
11.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보이고,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가 보인다.
12.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것을 찾아다니게 된다.
13. <자기 사고와 차원>대로 좋아하고 생각한다.
14. 자기는 '자기 만족'을 최고로 친다.
15.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16. 자기가 싫어하거나 보통으로 보거나 관심 없이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17. 자기는 생명같이 귀하게 보는 것이라도, 그것을 천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18.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해서 <만물들과 각종 존재물들>을 '개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다. 그 중의 한 뜻은 각자 '개성대로 즐기고 기뻐하고 만족하게 함'이이고, 또 다른 뜻은 모두 좋아하는 것이 같으면 '서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이고, 그러면 '아름다움도 신비함도 조화로움도 없어서 각자 필요한 대로 못 쓰기 때문'이다.
19. 하나님이 사람이나 만물이나 각종 존재물을 '개성'대로 창조하신 것은 '상대성 존재로 창조해야 되기 때문'이다.
20. <남자>만 창조하면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며 만족할 수 없으니, 다른 개성체로 '상대성의 존재인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자>를 창조해야 '상대체'이이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가진 존재'이니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생들과 만물들을 '개성'대로 창조하셨다.
21. <개성>대로 좋아한다 함은 <자기 취향>대로 좋아한다 함이다.
22. 자기가 <여자 취향>이면 '여자'가 좋아하듯 좋아하고, 자기가 <남자 취향>이면 '남자'가 좋아하듯 좋아한다.
23.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를 못 할 정도로 좋아한다.
24. 자기가 좋아해서 좋아하고, 자기가 필요하고 쓸 곳이 있어서 좋아한다.
25. <작품>은 먹고 마시지 않아도, 연장같이 안 써도, 가만히 놔두면서도 사 간다. 자기가 좋아하니, 보고 즐기려고 사 간다.
26. 자기가 좋아하고 생각하는 형상이나 모양이 있으면, 그 실체를 찾아서 가지고 다닌다.
27.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성령님>을 좋아하면 '성령님'을 찾아다닌다. <땅>을 좋아하면 '땅'을 찾아다니고, <돌>을 좋아하면 '돌'을 찾아다니고, <집>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집'을 찾아다닌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띄어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거나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좋아하면 '천국'을 찾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면서 즐긴다.
28. 좋아하는 대로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 좋아한다.

29.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며 살아라. 이는 ‘최고 높은 생각을 가진 자’다.

30. <성령과 주가 좋아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좋아하며 행해라. 그러면 육계에서 ‘육’이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영’이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되어 영원히 누리게 된다.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31.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띄고, 그것을 취하고 만족한다.

32. 자기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여건을 틀어서 ‘다른 것들’도 사 오게 하셨다. 고로 많은 자들이 다 좋아하게 하셨다.

33.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삼위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삼위가 목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통해 신비하고 지혜롭게 행하신다. 가령 어느 곳에 ‘삼위가 원하는 돌’이 있다 하자.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삼위가 좋아하는 돌’은 안 좋아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돌’만 사려 했다. 그러면 ‘삼위가 좋아하는 돌’은 못 사게 되니, <돌 파는 자>를 통해서 여건을 틀어 돌 하나만 사 오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사려는 돌’과 ‘삼위가 좋아하는 돌’을 같이 묶어서 팔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다 개성대로 좋아하게 하신다.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렇다. 전도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하려 갔다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여 ‘삼위가 원하는 사람’도 같이 오게 하여 ‘뜻있는 자’를 데려오신다.

34.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도 같이 전도되었다. 그런데 ‘원래 전도했던 사람’은 나가고,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만 남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남았다.

35. 자기가 좋아해서 전도했는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오도록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며 ‘성령이 전도하려고 하는 자’를 오게 하실 때가 많다.

36. <월명동에 필요한 돌>을 사러 다녔는데 없어서 못 사고, ‘생각지도 못한 형상석’이 있어서 사 왔다. 기도하고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 돌’을 사 오게 하려고 돌을 사러 가게 했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물어보면 안다고 하셨다.

37. 월명동 <초가집돌> 사연이다. 한창 약수샘 옆 돌 작업을 할 때였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데, 어느 지점에서 여러 개의 돌들을 갖다가 쌓아도 들어가지고 안 맞았다. 맞는 돌이 없어서 속상했다. “이렇게도 돌이 안 맞나. 자로 재서 다른 돌을 찾아오자. 이 지역 어디에 그런 돌이 있겠냐? 600미터는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다. 목적지에 가니 돌이 있었다. 그런데 돌이 좀 커서 포클레인으로 깨려고 했다. 깨다가 포클레인 기름관이 터져서 못 깨고, 그 돌을 그냥 차로 싣고 왔다. 그 돌을 그냥 갖다 쌓으니, 역시 안 맞았다. 두루뭉술한 돌이라서 운동장 맨 끝에 흙을 채우는 곳에 갖다 버리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비가 막 쏟아졌고, 땅이 질어서 포클레인이 못 움직이니 그날은 못 옮겼다. 그날은 작업을 중지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그치고 선생이 제일 먼저 조깅하려고 운동장에 나와 보니 축구를 할 만했다. 그런데 운동장에 ‘어제 버리려 했던 돌’이 있어서 치우고 축구를 하려고, 그 돌을 다시 봤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아니, 600미터나 멀리 가서 가져온 돌이 이렇게 안 맞아? 두루뭉술하게 생겼다. 아깝다. 운동장 맨 끝의 매립 장소에다가 넣고 흙이 안 무너지게 메우자. 이리도 돌 크기가 안 맞나.’ 했다. 그리고 ‘그 돌의 사방’을 확인하면서 보니, 그때 ‘한 형상’이 눈에 띄면서 보였다. ‘옛날에 선생이 살던 생가, 초가집 형상’ 같았다. 즉시 포클레인 기사보고 “빨리 나와서 이 돌 좀 바로 세워 봐라.” 했다. 포클레인 기사가 뛰어와서 돌을 바로 세우니, ‘옛날에 선생이 살던 초가집 형상’과 거의 닮은 모양이었다. 지붕이 썩어서 고친 것도 닮았고, 오래되어 약간 기운 모양도 닮았고, 추녀와 흙벽 등도 닮아 있었다. 운동하러 나온 제자들이 모두 “초가집 형상이다.” 하고 외쳤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여건을 틀어 ‘이 돌’을 가져오게 하시고, 또 여건을 틀어 ‘이 돌의 형상’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좋아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다른 것’을 행하면서 ‘뜻있는 것’을 찾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작품 돌’을 주신 것이다. 예전에는 수십 년을 봐도 그 형상인지 몰랐다. 반은 묻혀 있어 반만 보이고, 비스듬하게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살던 초가집 사진을 한 장도 못 찍어 났다고 늘 아쉽다고 기도했었는데, 소원이 풀렸다. 하나님은 사진보다 더 좋은 작품으로 ‘그 초가집을 닮은 돌’을 주셨다. 월명동 자연성전에는 이렇게 찾고 가져온 돌들과 나무들이 많다.

38.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은밀하게 행하신다. 고로 처음에는 사연을 모른다. 후에 알고 깨달은 자는 기절초풍하며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한다.

39. 모르는 자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며 ‘우연’으로 생각한다. 자기중심, 자기 사고대로 사는 자다.

40. 자기가 행하다가 따라오는 ‘자체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여 뜻있는 것을 주시려고, 그 행위에 따라서 여건을 틀어 인도해 주시는 일’이 많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자꾸 해 주신다.

41. 섭리사 어떤 사람이 계시도 받고 기도도 잘하다가, 관리자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감시하는 관리를 하여 세상으로 뛰쳐나갔다. 성자에게 이 사연을 말하면서, 잘못 관리한 것을 회개하며 ‘뜻있는 자’이니 다시 오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다. 기도하고 성자가 시키는 대로 편지를 써 주었고,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각종 일을 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도 하게 했다. 그 사연을 들어 보니,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교회 십자가가 보여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서 부르면서, 그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그리고 섭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단상 청소, 교회 청소를 1년 동안 했다고 했다. 삼위는 ‘앞날의 뜻’이 있어, 전도자가 섭리 교회로 전도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믿고 행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그 사연을 듣고, ‘뜻이 있으니 책기게 했구나.’ 더욱 깨닫게 되었다. 이같이 관리해 준 것도 ‘우연’이 아닌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삼위가 감동을 주어 더 관리하게 하신다. 전에 그같이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행한 것이지, 그냥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라.

42. <자기 공적과 사연>은 어디로 안 간다.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혼자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막는 것이다.

2.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영광이 안 되고, 또 자기 홀로 자기 주관으로 하면 모든 사람의 개성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막는 것이니 인생들이 삼위께 영광을 못 돌리게 막게 된다. 고로 다 고쳐 행하도록 틀어 행하신다.

3. 삼위가 여건을 틀었는데도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따르는 자들을 통해 막고 틀어 행하신다.

4. <자기 것>이지만, 실상 ‘자기 상대의 것’이다.

5. <공원>은 국가의 것이지만, 국가의 상대가 되는 ‘백성의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삼위 자기의 것이지만, ‘삼위를 사랑해 주는 상대체의 것’이다.

7. <주>도 자기 것이지만, ‘사랑하고 위하고 귀히 여기는 자의 것’이다.

8. <볼펜 잉크>가 볼펜의 것이지만, ‘쓰여지는 상대, 종이의 것’이다.

9. <음식>은 주인의 것이지만, ‘값을 지불하고 먹는 자의 것’이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도 삼위 자기의 것이지만, 실상은 ‘삼위를 섬기고 좋아하여 삼위의 상대체가 된 자의 것’이다.

11. <물건>도 그 주인의 것이지만, 실상은 ‘그 물건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의 것’이 된다.

12. <국가>도 ‘사랑하는 자의 것’이 된다.

13. <자기 몸>도 자기 것이지만, 상대가 되는 자가 좋아하고 사랑하여 조건을 지불하여서 자기가 허락하면 ‘상대의 것’이 된다.

14. 부부끼리 같이 살면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은 각각 자기 것이지만, ‘그 몸을 사랑하는 상대의 것’이 되어 산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도 자기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여 상대체가 되는 자의 것’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 맞느냐고 하나님께 확인하니 말씀하시기를 “맞다. 댐에서 물을 방출할 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물같이, 막을 수 없는 웅장한 순리의 말이다.” 하셨다.

15. 볼펜 속의 핵인 <잉크>는 볼펜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볼펜의 상대가 되는 종이의 것’이다.

16. <쓰는 자>가 ‘주인’이 된다.

17. <제1의 주인>은 ‘주체’이고, <제2의 주인>은 ‘대상, 상대’다.

18. <삼위일체>는 ‘제1의 주인’이시고, <삼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제2의 주인들’이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순리의 법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상대>, 곧 <대상>이 되어 주신다.

20. <상대>가 되기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지 않고, 그 생각대로 생각하며 행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제2의 주인 자격’이 상실되고, 삼위와 주와 멀어진다.

21. 삼위일체는 맞아! ‘대답’도 하시고, ‘응답’도 하시고, ‘화답’도 하신다. 맞아! 삼위와 ‘연결’도 된다.

22. 삼위와 ‘하는 말’이 맞고 ‘생각’이 맞으면, 연결된다.

23. <문제>는 ‘답’이 맞으면 풀린다.

24. <인간>은 ‘항상 문제’다. 그 <답>은 ‘하나님’이시다.

25. <연결>되면 ‘답’이 온다.

26. 전화도 번호가 맞으면 연결된다. 상대와 마음과 생각이 맞으면, ‘대화’가 되고 ‘답’을 얻는다. 삼위와 주와도 그러하다.

27. <계시>는 ‘연결이 답’이다.

28. 꿈에나 생시에나 <계시>를 받으면, <연결되는 그것>이 ‘답’이다.

29. 이와 같이 이리하다. - 대상체를 연결하여 깨닫게 하신다.

30. 꿈에 한 여자가 머리 자르는 것을 봤다. 이 계시의 뜻을 풀려면, ‘자기가 행한 것’과 연결시켜야 된다. 연결하면, ‘연관된 내용’이 있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31. <야심작>은 ‘백보좌’로 연결된다. <백보좌>는 ‘하나님’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상대체’로 연결된다. 이렇게 그때마다 깨달을 것들을 깨닫도록 연결시키신다.

32. <성전>은 ‘주’이니 ‘주’와 연결하고, 주 위에 ‘삼위일체’와 연결시켜 ‘삼위의 상징적인 몸’이라고 깨닫게 하신다.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 주는데, <그 사람>을 두고 ‘만물’이나 ‘사물’로 연결시켜 깨닫게 하신다. 어느 때는 맑은 물, 어느 때는 썩은 물, 어느 때는 바위, 어느 때는 흙, 어느 때는 나무, 어느 때는 무기, 어느 때는 생활 도구 등 각종 것들로 연결시켜 보여 주면서 “너의 지금 상황이 그러하다.” 하고 깨닫도록 계시해 주신다. 연결시키면, 바로 깨닫게 된다.

34. <연결>로 ‘인봉’이 되어 있다.

35. 어느 때 저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 달라고 하면, 주름진 옷이나 구겨진 것을 순간 연결시켜 보여 주기도 하신다. 그와 같이 “주름져 있다. 구겨져 있다.” 함이다. <연결된 것>이 ‘푸는 답’이다.

36. 어떤 제자가 자기가 핏박을 받을 때, 하나님도 주도 자기와 함께한다면 ‘777, 1178’을 보여 달라고 하니, 간판이나 자동차 번호가 순간 지나가는데 ‘777, 1178’이었다고 했다. 이같이 연결시켜 계시하신다.

37. 어느 때는 어떤 생명이 걱정된다고 기도했는데 ‘썩어 버린 과일’을 보여 주시며, 그것과 연결시켜 깨닫게 하셨다. 확인해 보니 ‘썩은 과일’같이 되었다.

38. 꿈을 꿔어도 ‘연결된 것’을 잘 보아라. 꿈꾼 것을 낮에 연결시켜 깨닫게 하신다.

39. 꿈에 ‘매끈하고 구멍이 뚫린 수석’을 봤다 하자. 그 형상을 보니, ‘예술품’이었다 하자. 생시에 연결되는 것을 보면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수석>에 해당되는 것이 ‘생명’이니, 그것과 연결된 자에게 말씀을 넣어 줘야 된다. 그 사람이 믿고 따라오면 ‘그 수석을 가지고 온 것’과 같다. 돌이 크고 무거우면, 그 생명을 힘들게 생명권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40. 어느 때는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기도하고 연결시켜 보여 달라고 하면, 순간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위치’를 보여 주신다. 그 지점에 따라 ‘자기 신앙의 위치와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

41. 어느 때는 ‘만물’이나 ‘사물’이 안 보이고, ‘생각’으로 받고 깨닫고 연결되기도 한다.

42. <깨닫는 것에 유능한 자>가 될수록 ‘더 높게 고차원으로 연결’시켜 신비함을 깨닫게 하신다.

43. <자기가 확실히 아는 사물이나, 만물이나, 평소에 잘 통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답’을 주신다.

44. <자기가 사 온 작품>이나 <자기가 얻은 것>이 ‘어느 정도 차원의 것’인지 보여 달라고 하면 ‘사람’이나 ‘숫자’로 보여 주기도 하신다. ‘연결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풀어야 된다.

45. 한번은 <성자가 주신 것>이 어느 정도 멋있는지 ‘사람’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이때 성자는 ‘키가 크고 허리가 가늘고 히프가 큰 아름다운 여자’를 보여 주셨다. 이것을 보고, <성자가 주신 것>이 ‘멋있는 것’이라고 깨달았다.

46. <연결>로 ‘인봉’이 되어 있으니, <연결된 것>을 잘 보아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2016년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47. <뇌>의 생각은 ‘그릇에 담아 놓은 물’과 같아서 ‘기울어지고 쏠리는 데’로 간다.

48. <생각>이 강해야 ‘느낌’도 ‘사랑’도 ‘기쁨’도 더 느껴진다.

49.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려면, <생각>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 생각>을 강하게 할수록 <하나님 사랑>을 강하게 느낀다.

50. 사람이 <힘>을 강하게 줄수록 ‘더 무거운 것’을 들듯이, <생각>이 강할수록 ‘기쁨’도 ‘사랑’도 더 느끼게 된다.
51. 물이나 불이나 돌을 <몸>에 대고 느낄 때도 ‘더 강하게 대야’ 더 확실히 느낀다.
52. 어떤 물체에 <몸>을 대면, ‘뇌와 생각으로 느끼는 것’보다 둔하게 느낀다.
53. <몸>은 물체에 몸을 대야 느끼지만, <생각>은 생각만 해도 느낀다.
54. 신경으로 느끼며, <신경>에서 ‘생각’이 발생한다. 만일 <뇌신경> 없다면, ‘생각’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55.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뜨겁게 느낀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처음처럼 뜨거운 것을 많이 못 느낀다. 결국 <뇌신경>으로 <생각>으로 느끼는 것이니, <몸>을 대고 있어도 <생각>을 강하게 안 하고 있으면 <몸>으로는 많이 못 느낀다. <몸>도 ‘생각’에 의해 느낀다는 것이다.
56. 하나님도 <몸>을 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느끼기보다, <생각>을 강하게 함에 따라서 몸과 눈과 귀로 느낀다. 고로 <생각>을 강하게 해라.
57. 몸이 느낀다 하지만, 실상은 <생각>에 의해 <몸>이 느끼는 것이다.
58. <마음과 생각의 근본>은 ‘영’이다. 고로 <영적인 자>가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안다.
5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도 <생각>을 강하게 해야 잘 느낀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느껴야 더 느끼고, 확실하게 알고, 기쁨도 사랑도 느낀다.
60. <육체의 감각>은 ‘뇌신경의 10분의 1 정도’이니, <육체>로 느끼려 하면 ‘조금’밖에 못 느낀다. 이와 같이 <신령한 영의 존재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육적’으로 느끼려 하면 조금 느끼고, 조금 기뻐하고, 사랑도 조금 받게 된다. 강하게 ‘영적’으로 느껴야 100% 느끼고, 사랑도 기쁨도 많이 느끼고 받고 누린다.
61. <영적인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느끼면, <몸>도 알고 느낀다. 지구 끝에서도 느낀다. 천국에 있는 것도 느끼게 된다. <육>은 몸이 달아야 느끼는데, ‘몸’이 달았어도 <영에 속한 마음과 생각>이 안 느끼려고 하면 못 느낀다. 고로 ‘영적인 자, 정신적인 자, 생각이 강한 자’가 되어라. 그런 자가 100배나 더 강하고 확실히 느낀다. <육적인 자>는 ‘육’으로만 달고 느끼려 하니, 삼위도 주도 가끔 보고 가끔 만나서 그 정도만 느끼게 된다. 고로 실감이 안 난다.
62.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대해야 근본을 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육’으로 행하여 느끼고 누리며 그 뜻을 펴게 하신다.
63. <영적인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 <육>은 ‘육’을 만나야 기회가 있다. 그러나 <영>은 육을 안 만나도 ‘혼과 영’이 가서 만나고, ‘마음과 생각’이 가서 만나니 항상 기회가 있다. 고로 <영적인 자>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약속한 시간>을 지키려면, ‘앞의 하던 일’을 잘라야 된다.
2.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를 것을 잘 자르는 자>는 ‘지혜자’다.
3. <마음이 무디고 생각이 무딘 자>는 ‘자를 것’을 못 자르다가 댐이 터지듯 사고를 내고 일을 낸다.
4. <이성>도 자를 때 잘라야 되고, <사랑>도 자를 때 잘라야 되고, <자기가 쓰는 자>도 자를 때 잘라야 된다. 왕들도

‘자기가 옆에 쓰던 여우’를 못 잘라 내니,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속’을 다 드러내시고 ‘그 행한 일’을 다 드러내신다.

5. 성경에 나오는 <여우 헤롯 왕>도 때가 되니 ‘여우같이 행한 행위’가 다 드러났다. 고로 온 세상이 알게 되었고, 그 행위대로 받고 병으로 죽었다. 여우 간신들은 짓값을 받아도 그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 그동안 엄청난 손해가 가게 했기 때문이다.

6. <시간>을 지켜야 ‘시간’을 잡고 ‘자기중심’을 다스리며 ‘제때 그 일’을 하게 된다.

7. <시간>을 안 지키면, ‘그 시간에 일해서 얻을 것’을 못 얻는다.

8. 지구같이 시간을 지켜라.

9. 계절같이 시간을 지켜라.

10. 시계같이 시간을 지켜라.

11. 시간을 지킨 날과 못 지킨 날을 비교해 보아라.

12. 하나님은 ‘시간’을 지켜 행하시니, 시간을 못 지킨 자는 혼자 걸어가게 된다.

13. 시간 지키는 맛을 알고 시간을 지키면, 인생이 얼마나 맛이 나는지 깨달아라.

14.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마음을 거스르는 신뢰 없는 자’다.

15. <예배 시간>은 ‘삼위일체를 대면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습관이 되고 뇌가 굳어서 안 지키고 산다.

16. 시간을 안 지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만, ‘시간을 지키려는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다.

17.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자들>이 섭리세계에 너무 많다. 예배 시간 지키기를 행해라.

18. <자기 자유의 법>을 지켜야 ‘다른 법들’도 지키게 된다.

19.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니, <자기 할 일>도 안 지키며 자유분방하게 살아간다. 그러다 마치 신호 등의 초록불이 켜졌는데 느리게 걸어가다가 빨간불로 바뀌어 달려오는 차에 치여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듯 그리된다. <예배 시간>을 엄하게 지켜라.

20.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안 지키는 습관’이 들어서 늦게 하다가 탈 비행기를 못 타서 손해 가고, 늦어서 살 것을 못 사서 뺏긴다. 취직도, 성공도, 일도 ‘시간을 지켜서 빠르게 행하는 자’가 얻게 된다.

21. 시계처럼 시간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섭리사에 이미 선포하셨다. 그런데도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늘과 땅에 관한 시간들’을 안 지켜서 저마다 얻을 것인데 뺏기는 자들이 많다. 뺏겼어도 모른다. <시간을 지켜 행한 자>만 얻으니, 안다.

22. <시간 지키기 차원을 높인 자>만 얻고 누리고 기뻐한다.

23. <빠른 자>만 시간을 지킨다.

24. 성령께서 영계의 계시를 보여 주셨다. 넓이가 30m쯤 되는 길이 있었는데, 길을 목숨 걸고 뛰어가야 겨우 달리는 차에 부딪히지 않았다. 이는 ‘섭리인 모두 새벽에 즉시 일어나야 된다는 계시’였다.

25. 새벽에도 잠을 자르고 순간 일어나서 달려야 된다.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알면, 의문이 풀린다.
2. 제때 못 하면, 일이 꼬인다.
3. 제때 못 하면 시간도 여건도 꼬여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자와 길이 엇갈려서 서로 찾아다니게 된다. 이와 같이 <새벽 시간>을 제때 안 지키면, '삼위와 할 일'이 꼬인다.
4. 뜨거운 음식을 제시간에 먹듯이, '그 시간에 그때의 일들을 하기'다.
5. 어떤 일을 놓고서 번개같이 해야 된다. 할 일을 번개같이 해 놓고 번개같이 쉬고, 또 할 일을 번개같이 생각하기다.
6. 가만히 누워서 할 일을 눈으로만 보면 일이 자동적으로 해지냐? 일어나서 일을 해 없애야 '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 그로 인해 '먹고 즐길 일'이 닥쳐오게 된다. <자기 할 일>을 보면, 미처 좋아서 사랑하면서 해야 된다.
7. (현재 한국 주권자의 상황을 보고) 뿌리 깊은 나무이다 보니, 안 뽑힌다. 그러니 군중이 잡아당겨서 결국 뿌리가 잘라져 뽑히게 된다.
8. <자기 길>은 '자기'가 가야지, 누가 가냐.
9. 다른 사람이 화장실 대신 간다고, 급한 불일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10. <새벽에 기도하고, 삼위와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도 자기 것이니 '자기'가 해야 된다.
11. <할 일>을 하면, '자기 보람'이다. 그 일에 따라 차원대로 같이 기뻐하며 보람을 누린다.
12. 섭리사를 위해서 크게 행하면, 삼위와 같이 즐기고 먹고 마시며 삼위와 같이 보람과 영광을 누린다.
13. 일을 안 하면, 할 일이 안 보인다. <할 일>을 해야 그 일과 연관되어 연속 '할 일'이 보인다.
14. <일의 리듬>이 끊어지면, '할 일'이 많은데도 안 보이고 '일의 느낌'이 안 와서 일을 안 하면서 "나는 할 일이 없네." 한다.
15. 일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지쳐서 일의 맛을 잃지 말고, 마치 '일과 연애'하듯 지혜롭게 해라. 그래야 일이 쉽고, 일로 인해 힘을 얻으며 하게 된다.
16. 하루의 해가 질 때는 '그날 일을 정리'하며 '그날 못다 한 일'을 서둘러 처리하며 하듯이, '그 해의 일'도 그 해가 저물기 전에 서둘러서 해라.
17. <그 해의 일>은 '다음 해의 일과 연결'되어 있으니, 그 해를 넘기지 말고 해 놓고, '새해'를 맞아야 된다.
18. 실천해야 실제로 해결된다.
19. 행해야 해결된다.

20. <할 일>을 해야 ‘지난밤 꿈에 잊었던 것’이 생각난다.

21. <할 일>을 안 하고 삼위일체를 부르니, ‘대답’이 없었다.

22. <할 일>을 해 놓고 다 했다고 하며 삼위일체를 부르니, ‘대답’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셨다.

23. 그날그날 <새벽부터 일하는 자>는 일이 줄어서 하루 종일, 보다 쉽고 가볍게 일한다. <새벽부터 일하지 않는 자>는 종일 일이 무겁다.

24. 버스가 붐비고 짐 보따리가 많아도 열 일 제치고, 짐 보따리를 안고 들고 머리에 이고 제시간에 차를 타고 떠난 자는 고생돼도 간다. 그러나 짐 보따리도 없으면서 신사 숙녀 체면 차리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몸을 스치면서 그 버스를 타고 가냐? 옷도 다 구겨진다.” 하고 타지 않는 자는 지겹게 다음 차를 기다려야 된다. 다른 사람은 무거운 짐을 다 이고 가면서도 차에 타고 갔는데, 왜 빈 몸으로 빨리 버스에 못 올라탔느냐. 좋은 날이 가고 비까지 와서 옷까지 다 적시고 있구나. 그제야 <제시간>에 못 탄 것을 후회하며 다음 차를 기다렸다. 다음 버스가 오니, 이번에는 빨리 올라탔다. 그러나 그 차도 ‘시골 장터 버스’라서 짐꾼들로 꽉 차 있어서 앞의 차와 상황이 같았다. 시간이 뒤로 갈수록 버스는 사람들로 꽉 찼다. 고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제때 온 차’에 올라타야 된다.

25. 이와 같이 <새벽 시간>도 그러하다. ‘제시간’을 놓치고 ‘다음 시간’에 일어나면 잘 일어나질 것 같으나 잘 안 일어나진다. 그 시간을 놓치고 ‘또 다음 시간’이 되면, 역시 잘 안 일어나진다. 마치 시골 장터 버스가 짐꾼들로 가득 차서 시간이 갈수록 더 붐비듯이, <잠>도 더 잘수록 일어나기 힘들다. 고로 <제시간>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여 ‘하루 종일 가볍게 일하기’다.

26. 시장이 깨끗하면 먹을 것이 없듯이, <할 일>이 없어 깨끗하면 위(胃)가 깨끗하여 스스로 허리끈을 졸라매게 된다.

27. 사랑하는 자와 몸뚱이만 만나서 손가락만 빨면서 살 것이냐. 제때 뛰고 달리면서 입고 자고 배터지게 먹고 서로 만나야, 반가움도 기쁨도 희망도 사랑도 황금벌판처럼 물결친다.

28.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기대를 걸고 기다리신다. 그런데 그 기대가 어긋나게 하면 ‘자기 기대’도 어긋나고 ‘자기 운’도 돌아가 버린다.

29. <때가 와서 주는 복>도 못 받으면, <화>만 받게 된다.

30. <일거리>가 많아야 먹을 수 있다. 이것저것 먹고 배불러야 힘이 생겨서 웃음소리도 커지고 활기차다.

31. <할 일>이 없어서 몸에 날아온 먼지나 털고 있다 보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산다. 결국 지구 반대편에서 따로 놀게 된다.

32. 악착같이 <할 일>을 해 대야 ‘마른 골짜기’에 ‘물줄기’가 흘러와서 비경을 이루고, 그곳이 씻고 닦고 먹고 즐기는 장소가 되어 아쉬움 없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산다.

33. 매일 ‘새 날’이 오듯이, 매일 ‘새 마음’으로 ‘새 날’을 맞고, 매일 요리하여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삼위일체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34. <지난날 애태우며 원하던 것>이 ‘때’가 되어 오고 있다. 그것을 받기 위해 ‘긴장하며 날고 기고 행하기’다.

35. <할 일>을 못 하면, ‘자기 것’도 ‘지나가는 개’가 물고 간다.

36.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생일만 기다리지 말고,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고 마셔라. 그러면 그날이 ‘생일 잔칫날, 혼인 잔칫날’이 된다.

37. 지금은 '전능자 삼위일체와 보낸 자를 모시고 사는 때'다. 고로 너희는 혼자 사는 노처녀도 노총각도 아니다. <시대 신부의 삶>이 '이론'이냐? '관념'이냐? '실체'다! <실제로 삼위와 보낸 자를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자>만 '시대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

38. 세상만사 모든 일이 '때' 지나면 지나가서 '희망'도 '기쁨'도 '사랑'도 같이 떠나 버린다.

39. <제때>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와 주도 같이 해 주신다. 삼위일체와 보낸 자는 '제때' 하기 때문이다.

40. <때> 지나면 '혼자' 해야 되니, 힘들게 해야 된다. 다 하면, 그제야 삼위와 보낸 자와 동행한다.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잠에서 깨서 한 번에 일어나는 자>는 마치 '물건을 한 번에 드는 자'와 같다.

2. <잠에서 깨서 일어나려 했다가 잠이 들고 다시 일어나는 자>는 마치 '물건을 들었다가 못 들고 두 번째에 들고 가는 자'와 같다.

3. 잠에서 깨도 '수면 상태'에 있었기에 순간 못 일어난다. 그때가 '최고 편안한 상태'다.

4. 신앙도 '조는 상태,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최고로 편안하다. 그 상태가 편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이때 누가 일으켜 주고 잡아당겨 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한 기간이 간다.

5. 마치 '수면 상태'와 같이 <신앙>도 '자기 주관, 자기중심, 자기 사고'에 빠져 살면, 그리도 편하고 좋다. 이 상태는 '잠에서 깨서 누워 있을 때'와 같고, '잠이 와서 최고로 졸릴 때'와 같다. <우상을 섬기고 비진리와 자기 주관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도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잠에서 깨서 눈을 뜨고 즉시 일어나면 '수면 상태'에 있을 때보다 10배, 100배 더 좋다. 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본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기 때문이다.

6. <수면 상태>는 편한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고로 깨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손해만 간다.

7. 운전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잠>이 오면, '의식'이 잘 안 돌아온다. 그러면 곧 <수면 상태>에 처해 '위험한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 <잠을 자는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른다.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 곧 <신앙의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에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 급한 것을 모른다.

8. <수면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이야기를 해도 모르고, 행하며 보여 줘도 눈만 뜨고 있지 모른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9. <구시대에 속해 있는 자들>은 '신앙의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고로 하나님이 '새 시대 역사'를 펴도 모른다. 봐도 모른다.

10. 잠결에 눈 뜨고 봐도 '수면 상태 속'에 있으니 모른다.

11. 모든 삶이 그러하다. <수면 상태>에 속해 살면, 봐도 들어도 모른다.

12. <휴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잠이 깨지 않아 '몽롱한 상태, 무의식 상태,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한다.

13. 온전히 잠을 깨고 행하듯 <육신>이 온전히 휴거의 삶을 살아야 <휴거의 영>도 매일 변화되고 차원을 높인다.

14. 자기가 각오하고 ‘행하고자 했던 의’를 온전히 행해야 ‘그 차원’에 오르게 된다.
15. 행할 때는 ‘몸부림’을 쳐야 그 일을 행한다.
16. <수면 상태>에서는 ‘몸부림’을 쳐야 일어나진다. 그러면 <급한 할 일>이 보이게 되고, 행하게 된다.
17. <신앙의 잠에서 깬 자가 봤을 때 이해 못 할 행동을 하는 자들>은 모두 ‘신앙의 수면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18. <비정상에 빠져서 비정상의 것들을 거둬서 행하는 자>는 ‘그것에 중독된 자’다.
19. <온전한 삶을 거둬하는 자>는 ‘중독자’가 아니다. ‘온전한 것을 반복하여 행함으로 굳세게 하는 자’다.
20.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거둬 행하는 자>는 ‘의를 거둬 행하는 자’다. 고로 그 육과 영도 더욱 빛이 난다.
21. <온전치 못한 것, 비정상의 것들>은 ‘독성’이 들어 있어서 거둬 행하면 ‘중독’이 되고, 그것이 ‘생명’을 망치게 한다.
22. 세상 사랑, 육체 사랑, 도둑질, 사기, 폭력,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반항, 혈기와 분노, 자기 이론, 자기중심 등은 모두 ‘비정상적인 것, 불의에 속한 것’이다.
23. <중독의 행위>도 기쁨과 만족과 흥분과 편안함을 준다. 고로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여 몸에 스릴을 느끼며 행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행할수록 몸에 병이 오고, 뇌에 병이 오고, 생각에 병이 오고, 육도 혼도 영도 사망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결국은 ‘시한폭탄 터지는 때’를 맞게 된다.
24. <중독>을 벗어나서 ‘전능자 삼위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면, 하나님 주관권의 사랑과 기쁨과 흥분을 ‘뇌 전체, 생각 전체, 마음 전체, 몸 전체, 혼 전체, 영 전체’가 느끼고 기뻐한다. 이것은 행할수록 더 얻고, 더 기쁘고, 뇌도 생각도 마음도 몸도 혼도 영도 망가지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다.
25.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은 모두 ‘불의에 중독’되어 그쪽에 속한 기쁨과 흥분을 느끼며 산다. 그러나 이것은 행할수록 뇌도 생각도 마음도 몸도 혼도 영도 망가지고, 사망으로 기울어진다.
26. <선>에도 ‘기쁨’이 있고, <악>에도 ‘기쁨’이 있다.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는 등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의를 행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도 ‘기쁨’이 있다. 결국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화’를 받고, <의를 행한 자>는 ‘축복’을 받는다. 각각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지 보아라.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27. <육계의 것>도 제대로 깊이 안 하면 ‘제맛’이 안 나고, <영계의 것>도 제대로 깊이 안 하면 ‘제맛’이 안 난다.
28. <할 일을 두고 해야 될 것을 할 때> 그 맛이 ‘제맛’이다.
29. 가령 산을 정복한다 하자. <목적한 데까지 정복할 때> 그 맛이 ‘제맛’이다. 이는 그 전에 목적을 이루려 하는 과정의 맛과는 다르다.
30. 큰 돌 하나를 목적한 자리에 세우려 하는데, <그 돌을 찾아다닐 때의 맛과 기쁨>은 ‘희망의 맛과 기쁨’이다. 그러다 ‘높고 크고 웅장한 돌’을 찾았다. <찾았을 때의 맛과 기쁨>은 과정보다 훨씬 높고 크다. <그 돌을 싣고 가서 목적한 제자리에 세워져 전체가 더 빛나게 보일 때>는 ‘목적의 달성한 맛’이 그리도 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정을 거치는 자의 기쁨과 흥분>이 다르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달성한 자의 기쁨과 흥분>이 다르다.

31. <남녀가 연애하는 과정의 기쁨>과 <과정을 거쳐서 목적을 달성한 기쁨>이 다르듯, 육계의 것도 영계의 것도 <신앙 안에서 얻기 위해 가는 과정의 기쁨>과 <얻고 누리는 기쁨과 흥분>이 다르다. <과정>은 ‘정신과 생각’으로 희망을 느끼고, <얻은 것>은 ‘손에 쥐고 있는 상태’라서 몸으로 ‘실체’를 느끼며 생각으로 ‘얻은 기쁨’을 누리다. 현대 종교인들도 그러하다. <주를 기다리고 새 역사를 기다리는 자들의 기쁨>과 <새 역사를 얻고 기다리던 주를 만나 실체와 같이 사는 자들의 기쁨과 희망>은 다르다.

32. 표현할 때도 그러하다. <실체를 안 보고 희망으로 표현하는 자의 차원>과 <실체를 보고 표현하는 자의 차원>은 다르다.

33. <발의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자가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과 <찾아서 숨기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이 시대도 <주를 희망으로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과 <새 시대와 보낸 주를 찾은 자가 누리는 기쁨>은 다르다.

34. <짝사랑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기쁨과 흥분>이 다르고, <짝사랑을 이룬 자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기쁨과 흥분>이 다르다.

35. 오히려 <사랑을 이룬 자>는 그 기쁨과 흥분이 그냥 보기에는 ‘아직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보다 표가 안 난다. 이미 사랑을 이루어서 기쁨과 흥분이 가라앉아 ‘내적’으로 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는 희망과 열광과 열망에 혈안 되어 더 날뛰다. 이는 비유컨대 <발의 보화를 찾은 자>는 누가 알까 봐 기쁨과 흥분을 자제하고 숨기고 속으로 즐기며 기뻐하지만, <발의 보화를 찾지 못한 자>는 보화를 찾기 위해 밖으로 흥분을 내뿜으며 더욱더 환각 상태에 빠져 미쳐 뛰어다닌다. 이로써 <보화를 찾은 자>와 <못 찾은 자>를 분별하게 된다.

36. 바닷속을 보면, 온몸에 불이 나게 다니는 물고기가 있다. 먹이를 찾으려고 희망에 차서 기뻐하며 흥분되어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먹이 잡는 것을 포기했는지, 한쪽에서 눈만 말뚝거리고 꼬리만 치면서 몸이 무거운 듯 가만히 있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먹이 잡는 것을 포기했거나, 혹은 이미 잡아먹고 배부른 기쁨을 누리며 흥분되어 있는 물고기다. 배가 불룩한 것을 보면, 모르겠느냐.

37. 종교인들도 보면, 불이 나게 흥분되어 다니는 자들이 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희망에 차서 흥분되어 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조용한 자들이 있다. 새 역사와 주를 만나기를 포기했든지, 아니면 기다리던 주를 만나서 새 역사 주관권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랑 잔치하는 자들이다. 새 역사 주관권 밖에 있는 자들은 모르는 것이다.

38. <성전을 찾으러 다닐 때>는 오히려 요란하고 희망과 기쁨과 흥분이 불타오른다. 그러다 조용해지는데, 이는 판이 식었든지, 혹은 포기했든지, 혹은 찾았기 때문이다.

39. <찾던 애인>을 찾으면 조용하다.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즐기느라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40. 거리를 누비며 기쁨과 흥분으로 전도하러 다니다가 안 보이는 자들은 전도의 판이 식었거나, 전도를 포기했거나, 혹은 찾던 자를 전도해서 가르치며 말씀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도 ‘보낸 자와 새 역사를 찾은 자들’이 그러하다. 밖에서 보면 조용하지만, 그 주관권 안은 주와 함께 생명들을 구원하고 뜻을 이루며 잔치하느라 시끌벅적하다.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41. 어떤 골짜기에 ‘모양이 신비한 형상석’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두고 찾았다. 수십 명이 자기가 ‘그 돌’을 찾았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각각 따랐다. 그리고 각각 박물관을 만들어서 ‘그 돌’을 전시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신비한 모양의 돌을 찾아간 자’가 분명히 있다. 그 골짜기에 이제 돌들이 하나도 없으니, 누가 ‘그 돌’을 찾아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전설 같은 신비한 모양이 속 시원하게 있는 돌’은 없었다. 따르는 자들만 좋아하며 각자 “이 돌이 맞다!” 했다. 그중에 딱 한 사람만 ‘신비의 형상석’을 가지고 있었다. 영락없이 ‘신비한 모양이 있는 돌’이었다. 보고 또 봐도 ‘자기가 주운 돌’과 ‘남들이 주운 돌’이 비교가 안 되었

다. 그는 이를 알고는 초가집을 헐고, 아예 집 안에 ‘그 돌’을 넣어서 집을 지어 버렸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만 알고 따르게 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역사>도 그러하다.

42. 한 나라에 전설이 내려오기를 그렇게도 ‘좋은 터’가 있다고 하여,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터’를 찾아다녔다. 찾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 터’를 찾았다고 하며 기뻐했다. 그런데 찾았다고 하는 이가 많고도 많았다. <그 나라 전설로 내려오는 좋은 터>는 ‘딱 한 자리’뿐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찾았다! 여기가 맞다.” 했다. 그러나 그중의 한 사람만 전설의 ‘그 터’를 찾았다. 그곳이 ‘핵’이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 곳은 모두 ‘핵 주변에 속한 환경들’이었다. 오직 ‘주인’만 아예 거기서 태어나고, 크고, 알고, 전설을 이룬다.

43. 월명동에 사람이 들어와서 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년 동안 그곳에 ‘반달 터’가 있다는 전설이 흘렀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 터’를 찾아서 밋자리로 쓰기도 하고, 그곳에 집을 짓기도 했다. 알고 보니 <월명동 마을 전체>가 ‘반달 터’이고, <핵>은 ‘월명동 성전 안’이었다. 사람들이 좋다고 찾아서 밋자리로 쓰고 집을 지은 곳은 ‘핵을 중심으로 한 배경들’이었다.

44. <핵 위치>에서 ‘최고로 큰 인물’이 난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핵 위치’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핵 위치’다. 하나님은 아예 그 자리에서 ‘최고로 큰 인물’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크게 하신다. 나머지 좋다고 하는 곳은 ‘핵을 위한 배경들’이다.

45. <핵>을 위해 ‘민족 전체’가 이루어진다. <그 민족>은 ‘확대시킨 핵’이 된다. 이 나라에 ‘시대 복음’이 제일 먼저 선포된다. <그 민족의 주변 나라>는 ‘배경’이며 ‘복음의 대상 나라’다.

46. 영적 세계에서도 <차원 높은 계시나 설교나 기도나 생각이나 행위>를 보면, ‘표현’이 다르다. 그냥 보면 비슷한 것 같아도 ‘표현한 것’을 보면 다르다.

47. 조각도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첨단의 조각>을 보면 ‘본 얼굴의 이미지’를 그대로 조각하여 표현했다.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지만, 상상도 못 하는 차이가 난다. 설교자도, 강의자도, 증거자도 ‘증거하는 삼위일체와 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하는지 들어 보면 다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크고 높다. ‘한 단어’를 더 넣느냐, 못 넣느냐에 따라서 그리도 크고 높은 차이가 안다.

48. 화가들이 초상화를 그린 것을 보면 다 비슷해 보여도 <첨단의 초상화>를 보면 ‘본 얼굴의 이미지와 느낌’이 잘 표현됐다. 본 얼굴과 많이 닮았는데, 조금 닮았는데 하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본 얼굴과 닮게 그리려면 수년, 수십 년씩 걸린다. <말씀을 표현하여 증거하는 것>도 그러하다. 설교자도, 강의자도, 증거자도, 계시자들이 표현하여 증거하는 것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직접 표현하며 증거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엄청나니 ‘삼위와 주의 계시와 말씀’을 깊게 보아라. 삼위는 거침없이 표현하신다.

4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말씀의 표현은 무조건 차원이 높다고 평가하고 분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의 표현>은 ‘무조건 차원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하니, 하나님은 “아니다. ‘각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표현해야 알아듣는다. 그래서 어느 때는 ‘보통으로 표현’하고, 어느 때는 ‘첨단으로 표현’한다.” 하셨다. 아무리 카메라 성능이 좋아도 무조건 ‘크게만’ 찍지 않고, 찍는 자가 원하는 대로 ‘크게’도 찍고 ‘작게’도 찍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라고 ‘차원 높게만 표현’하지 않으신다. ‘각자의 차원’에 따라서 어느 때는 유치부, 어느 때는 중고등부, 어느 때는 대학부, 청년부, 어느 때는 가정국, 장년부, 어느 때는 지도자들, 계시받는 자들에게 맞게 표현하신다. 고로 ‘표현의 차원이 높냐’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하는 목적’에 맞게 말씀하신다. 고로 천층만층구만층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신다. 또한 ‘만물’로도 보여 주면서, 착오 없게 행하신다.

<2016년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다.

2. <육의 세계 사람들의 유혹>, <영의 세계 사탄의 유혹>이다. <두 세계의 유혹>을 이겨야 '주의 세계, 삼위일체의 세계'다.
3. <사람>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말하고, <사탄>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말한다.
4.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말씀하신다.
5. 사람이 '몰라서' 유혹을 받는다.
6. 사람도 사탄도 '아는 자'는 유혹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는 자>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유혹한다.
7. 섭리사 안에서 '계시국을 통해 주께 계시 결재가 난 계시'만 들어라. 그 외의 계시들은 '자기 의지, 자기 지식으로 만든 사적인 말들'이다. 그 말은 듣지 말아라.
8. 주가 인정해야 '생명력 있는, 살아 있는 계시'다.
9. 똑같은 내용이라도 <성령과 주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10. 섭리사 안에서도 밖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계시를 받는다.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 자기 의지와 지식에 의해 생각해서 아는 것이 있다. 이는 '시대의 온전한 계시'가 아니다.
11. 유혹하는 자들의 말은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생명이 없는 말'이다. 그래서 속고 영이 망한다.
12. 예수님 때도 <주가 한 말>이 아니면, 맞는 것 같아도 '틀린 말'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말이냐?" 하고 분별했다.
13. 똑같은 숫자를 썼어도 주가 쓴 것, 타인이 쓴 것, 어느 것이 '생명의 숫자'이겠느냐.
14. 똑같이 옳은 말을 가르쳐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중시하여 '그 주관권 안'에서 가르쳐야 <그 시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도 <뜻>을 펴신다. 다른 자들이 가져다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면, <그 시대 구원>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뜻>을 안 펴신다.
15. 섭리사에서 시대 말씀을 듣고 나간 자들이 나가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 그것은 '지식'으로 잠시 알고 가는 것으로 끝나고, '육의 세계'에서 끝난다.
16. <보낸 자가 가르친 말과 진리>는 '하나님과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삼위일체는 오직 '그 말씀'만 인정하고 중심해서 '새 시대 뜻'을 펴시고 '시대 구원'을 이루신다.
17. 다른 데서 <섭리사 말씀>과 똑같이 가르쳐도 그들은 '시대 보낸 자'를 인정하지 않으니 '시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만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육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18. 섭리사 안에서는 '주가 준 말씀'만 인정하고, '주가 허락한 것'만 주가 함께하며 그 편에 서 있다.
19. 사탄도 사람도 '옳은 말'을 하면서 유혹하며 가르친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인정한 말>이 아니면 '생명 없는 말'로서 그것이 '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20. <가짜>가 <진짜>와 똑같이 생겼어도 '본 회사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21. <섭리사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을 펴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 모두 ‘허사’가 된다.

22. 다른 교파에서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다.” 한다. 그리고 <섭리사 말씀>을 “우리 것이다.”라고 한다. 아무리 그리 주장하며 가르쳐도 ‘새 시대 차원의 휴거를 이루는 구원’은 없다. 이는 헌옷에다 새 옷의 조각을 가져다 꿰맨 것이니 하나님은 헌옷으로 판단하시고,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하며 책망하신다.

23. 이 시대는 <휴거>에 대해 일자무식하다. 세상의 각종 유혹자들 때문에 섭리사는 ‘30개론’을 전초로 가르치고, 마지막에 핵심인 ‘휴거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쳐서 ‘신부’로 단장시키고, 육이 행하게 하여 ‘휴거의 영’이 되게 하고, 휴거 날에 휴거시켰다. <성자가 보낸 자의 육신 쓰고 다시 오신 날, 보낸 자가 태어난 날>에 성경에 예언한 뜻을 이루었다. 오직 ‘주인’만 이 역사를 한다. 지구 세상 73억 명 중에서 <그 날을 맞게 하는 자>는 전에도 후에도 없고 오직 ‘보낸 자 한 명’밖에 없다. <때>가 맞고, <말씀>이 맞고, <삼위일체>가 함께하시고, <따르는 자들>이 신부로 준비되어 다 그 날을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맞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오직 <보낸 자>만 시침, 분침, 초침 다 맞춰서 ‘말씀’을 다 이루고 온전히 행한다.

24. 다른 교파, 다른 자들은 <휴거>를 전혀 모르고, 지도자들도 이미 죽었고, 지도자가 살아 있어도 90세 가까운데 그 노인들이 하겠느냐. 삼위일체는 이미 <보낸 자>가 70세가 되기 전에 ‘뜻’을 두고 행하셨고, 70년 동안 역사를 펴며 그를 기른 후에 그가 7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의 예언’을 때에 맞춰 이루셨다.

25. <휴거>를 이루고 <주인>이 되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할 일’을 다 알고, ‘삼위의 몸’이 되어서 삼위와 함께 도적같이 행해야 된다.

26. 다른 자들은 자기가 ‘메시아, 재림주’라고 하면서도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일자무식하다. 아무것도 모른다. 태어난 위치도 아니고, 태어난 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삼위일체가 인정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주셨다. 거짓임이 다 드러났다. <새 시대를 온전히 알고 주를 알고 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짓된 자들을 알아버렸다. 고로 하나님은 증거하게 하신다.

27. 어떤 자들은 <신부>가 아닌 ‘가정의 형제들’끼리 ‘혼인 잔치’를 했다. <시대의 뜻을 안 자들>이 그들의 실체를 알고 드러낸다. 하나님이 그 날에 다 드러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된다.

28. 가령 어떤 사람이 ‘시대가 모두 바라는 혼인 잔치 역사’를 이루려 와서 ‘혼인 잔치’를 하면서 먹고 마셨다 하자. 그런데 알고 보니 ‘자기 형제자매’와 혼인 잔치한 것을 알았다면, 그를 따라가겠느냐. 인정하겠느냐. <시대 하나님의 계획,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룬 자>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육신 쓰고 나타난 자 한 명’이다. 그가 ‘메시아’이며 ‘주’다. <온전한 뜻을 이룬 자들>만 ‘주’를 안다.

29.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성경 말씀, 휴거’를 이뤄야 된다. 그런데 그 근처에도 못 가 본 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한다.

30. 결국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 ‘거짓’이 다 드러난다.

31. 하나님은 그 뜻대로 <휴거>를 다 이뤄 놓고,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진짜 온전한 성경의 예언>을 다 이뤄 놓고 밝혀야 다 인정하고 알기 때문이다.

32. <행한 자들>이 말하고 증거하니, 믿게 된다.

33. 월명동도 다 해 놓고 “전설의 주인이다.” 해야 믿으니, 다 해 놓고 군중들이 전설같이 모여들게 했다. 고로 “전설의 주인이다.” 하고 믿었다.

34. 다 해 놓고 드러내려고, 성경대로 행하기만 했다. 한국만 해도 ‘자기를 재림주라 하며 불법하는 자들’이 수십 명

이나 있었는데, 이미 망하고 없어졌다. 남아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만 믿고 갈 뿐이다. 그들은 해가 동쪽에서 떠도 “아니다.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하고 가는 자들이다.

35. <이 시대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모르는 자들’이 알고 따른다.

36. 거짓되게 행하니, 그 행위대로 거짓되게 되어 버린다.

37. 남자를 여자로 분장시켜 동성 결혼을 했는데, 모르는 자들은 따라간다. <주인>이 와서 제대로 행하고 가면서 다 드러낸다.

38. 거짓되게 “내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재림주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온전히 행하는 보낸 자>를 통해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과 ‘거짓된 것’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39. <잡초와 가라지>는 가을이 되면 주인이 거두지 않고, 들에서 썩게 놔둔다.

40. 어느 마을의 원님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님의 딸과 결혼하는 자’가 그 나라의 전설을 이루는 주인이라고 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욕심에 빠져 명예를 꿈꾸는 자들’이 서로 자기가 원님의 딸과 결혼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런 줄로만 알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섬겼다. 그런데 ‘진짜 원님의 딸과 결혼한 자’는 따로 있었다. 그는 그 고을의 원님과 하나 되어 ‘고을의 큰일들’을 해 놓고, 원님과 함께 ‘거짓된 자들’을 모두 드러내고 밝혔다. 이에 사람들은 <해 놓은 것>을 보고 ‘거짓되고 썩은 자들’을 알게 되었다.

41. <육적인 자>는 ‘육적인 것’을 행하고, <영적인 자>는 ‘영적인 뜻’을 이룬다. <육적인 자>는 ‘세례 요한 격’으로서 ‘영적인 자를 위해 첩경을 예비하는 자’다.

42. <육적인 자들>은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고 끝나고, <영적인 사명자>는 ‘영적인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룬다.

<2017년 1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실천>이다.

2. <스스로 실천>이다.

3. <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이다.

4. <실천>이 ‘성약역사의 교리이며 생명’이다.

5. <신약시대>는 ‘믿고 기다리는 시대’라면, <성약시대>는 ‘기다리던 자를 맞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시대’다.

6. 하나님이 축복의 꿈을 주셔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뜨거워도 ‘실천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스스로 존재하신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온전히 행하며 존재하신다.

8. 구원자도 스스로 존재한다. <인간 책임 분담의 것, 인간 육신 편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조건을 세우고 행한다. 그 터전 위에 ‘스스로 행하시는 삼위일체’가 임하시고 역사하여 그와 함께 인생들을 구원하여 시대 역사를 펴 나가신다.

9. <난자>는 ‘여자 몸에서 스스로’ 생기듯, <구원자>도 ‘인간 편에서 할 일, 인간 육신에게 해당되는 일, 인간 책임 분

담의 일'을 이 시대에 해당되게 스스로 행한다. 고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자>는 '여자 몸에서 스스로' 못 만들고 '상대, 사랑하는 자'가 줘야 받을 수 있듯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것>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삼위일체'께 배우고 받아야 된다.

10. <구원자>가 스스로 절대 신부의 입장에서 성삼위를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인간 편에서 할 일을 스스로 행하니 <삼위>와 일체 되고 결합되어 삼위께 배우고 성장하면서 <신부 역사>를 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

11. <난자>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면, <정자>와 결합되지 못하여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간>이 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지 못하면, <삼위>와 일체 되지 못하여 육도 영도 죽은 격이 된다.

12. 스스로 먹고 자고 숨 쉬며 존재하듯이, 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해라.

13.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좋아서 기뻐서 하고 싶어서 하니, 주님 부담 갖지 마세요. - 하고 주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가 '스스로 행하는 자'다. 이런 실천이 '황금 같은 실천'이다.

14. 몰라서 못 하면 누가 시켜서라도 할 일을 해야 하고, 힘이 없어서 못 하면 누구의 협조를 받으면서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스스로 실천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한다.

15. <스스로 할 일>은 '스스로 실천'하면서 존재시켜라.

16. 하기 싫어도 <스스로 할 일>은 '스스로 실천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승리하는 방법이다.

17. 벌통에서 벌들이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스스로 할 것을 하면 '벌들도 존재'하고, 그로 인해 '벌꿀'도 얻게 된다. 인간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스스로 할 것을 하면 '자기도 존재'하고, 그로 인해 '얻을 것'도 얻게 된다.

18.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해야 기뻐하며 존재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스스로 행하며 존재하신다. <주>도 삼위와 일체 되어 스스로 행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스스로 행하는 자들과> 일체 되어 '시대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20. 옆에서 도와도 결국 스스로 먹고 자고 숨을 쉬어야 존재하듯이, 성령과 주가 옆에 있으면서 도우며 함께해도 <인간 책임 분담>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존재한다. 성령과 주는 <하늘 책임 분담>을 해 주면서, <인간 책임 분담>은 '스스로' 하게 하신다.

21. 북이 있어도 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난다. 성령과 주가 옆에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안 통한다. 북을 치면 즉시 소리가 나듯이, 성령과 주를 찾으면 즉시 <감동>으로 대화하고 <마음>으로 대화하며 통하게 된다.

22. 기도 실천, 영광 실천, 전도 실천, 관리 실천, 증거 실천이다.

23.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여 주기 실천이다.

24. 때가 된 교회는 전세살이 떠나기 실천이다.

25. 작년에 못 한 것 하기 실천이다.

26. 밭에 감춰진 보화 찾기 실천이다.

27. 자기 영과 육의 건강 살피기 실천이다.
28. 자연성전 하나님 궁에 관심 갖기 실천이다.
29. 무엇을 하더라도 달란트를 남기고 와서 이야기할 것 만들기 실천이다.
30. 자기 이름 날리기 실천이다.
31. 말로 상처 안 주는 기록 세우기 실천이다.
32. 죄 안 짓기 실천이다.
33. 화목 실천의 해이다.
34. 선(善)을 행함으로 영도 육도 갖추고 예뻐지고 멋있어지기 실천이다.
35. 간절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기도하기 실천이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대화 실천이다.
37. ‘악과 악평자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기’ 실천이다.
38. 주를 맞기 위한 실천이다.
39. 말씀과 계시를 꼭 듣고 읽고 행하기 실천이다.

<2017년 1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최선을 다해야 최선으로 보이고 최선으로 이루어진다.
2. <최선의 실천>은 ‘최고의 것’을 얻게 한다.
3. 시력만큼 보이듯이 ‘자기 행위의 차원’대로 보이고 행하게 된다.
4. 시력만큼, 눈높이만큼 보이듯이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보이고 실천하게 된다.
5. <자기 행위>대로 ‘영의 세계’에도, ‘육의 세계’에도 처하게 된다.
6. 집을 구상하고 만드는 대로 지어지듯이, <자기 실천>으로 ‘자기 혼과 영’이 형성되고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7. <실천>은 자기를 더 자유롭게 한다.
8. 말로나 글로나 행위로나 ‘표현’을 잘하여라.
9. <표현>에 따라서 ‘차원의 높고 낮음’이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광채’도 달라진다.
10. <표현>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차원과 방향과 광채’가 달라지듯이, <행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것, 얻는 것’이 달라진다.

11. 첨단으로 만들려면, <실천>을 극도로 섬세히 잘해야 된다.
12. 잘하는 만큼 ‘신적인 작품’이 나오고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13. 보통으로 살면 1년, 10년, 수십 년을 살아도 ‘보통’밖에 안 된다.
14. 오늘부터 당장 집중하여 자기 실력 발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잘하면서 살면, ‘낮은 땅바닥에서 걸어 다니던 삶’에서 벗어나 ‘날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15. <계속 차원 높여 질주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고, <가끔 한 번씩 퍽엄퍽엄 잘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다.
16. 매일 노력하고, 배우고, 신경 쓰고, 목적을 높이 두고 살아라. 그래야 네게 ‘희망’이 생기고, 삼위도 ‘줄 것’을 주신다.
17. <최선을 다하는 실천>을 하면, 그로 인한 ‘희망’과 그로 인해 ‘얻은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더 실천하게 된다.
18. <별것도 아닌 실천>은 ‘보통 삶’으로 소모되고 끝나게 한다.
19. <자기 육신에 속한 실천>은 ‘소모품의 삶’으로 끝나게 한다.
20.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고 살아야 ‘육에서 영까지 존재하는 삶’이 된다.
21. <의식주만 해결하고 사는 실천>은 그리 귀한 실천이 아니다.
22. <영원한 것을 두고 사는 실천>이 그리도 귀하고 큰 실천이다.
23. 하루를 실천하더라도 <그 날 먹고 살기 위한 실천>은 ‘그 날’로 끝난다. <평생 보고 누릴 것을 위한 실천>은 더 희망이고 기쁨이다. 이와 같이 <현 세상만을 위한 실천>보다 <영원한 것을 위한 실천>은 더 기쁨과 희망과 보람을 가져다준다.
24. <그 날 먹고 입기 위해 일을 하는 자>보다 <그 날 먹고 입기 위해 일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고 사람도 키우고 동물도 키우며 일하는 자>가 현재도 미래도 기쁨과 희망이 더 클 것이다.
25. <현 세상 육의 세계>를 위해서도 살지만, <미래를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의 말을 듣고 영원한 것을 위해 행하는 삶>을 살아라.
26. 하나님은 지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육의 세계>에서도 ‘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어 ‘미래의 영’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27. 실천하면 금방 하는데, 바로 할 일도 안 하고 미루니 수년씩 못 하고 있는 것이다.
28. 전능하신 하나님은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만 그냥 주시고, <뜻 있는 것>은 인간이 구하고 찾고 원해야 뜻 있게 주신다.
29. 그냥 주면 의미도 없고, ‘귀하신 하나님의 가치’도 흐려지고, ‘준 것의 가치’도 흐려진다.
30. <간구하고 찾고 원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다.

31. 간구하고 찾고 원하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면 ‘가치’를 모른다. 이는 공의롭지 못하다.

32. <필요한 자>가 구하고 찾는다. <좋아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다. <원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다.

33. 하나님은 합당하면 주신다.

34. <구한 것>은 합당하면, ‘때’가 되면 주신다.

35. <예전에 구한 것>을 ‘지금’ 주시는지 보아라.

36. 귀히 여기고 구하고 찾아야 ‘더 좋은 것’을 주신다.

<2017년 1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천재가 되려면, 생각났을 때 실천하여라.

2. 천재라도 잊으면, 바보가 된다.

3. 생각났을 때는 살았다는 것이다. 살았을 때 실천해야지, 죽은 후에는 못 한다.

4. 죽으면, 육신은 파리만큼도 실천하지 못한다.

5.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은 허황된 삶이 아니다.

6. 섭리사 안에서 사는 자들아.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며 살아라. 허황된 삶이 아니다. ‘더 잘되는 삶’이다.

7. 긍정적인 주관권 안에서 살면서도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사는 자’는 잘못되고 무서운 생각을 가진 자다. 이런 자는 ‘생생한 것을 썩게 만드는 자’와 같다.

8. 하루는 사탄이 <천국 주관권에 사는 어린 소년>에게 와서 ‘사탄의 한 주관권에서 사는 자’를 소개하며 “이 분은 엄청나다. 지옥에서 최고의 날을 누리며 살고 있다. 하루에 세 끼를 먹고, 큰 집에서 살고, 정원도 크다.” 했다. 이에 어린 소년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네가 지옥 불바다에서 세 끼를 잘 먹으면 뭐해? 집이 크고 정원이 크면 무슨 소용이야? 뭐가 대단하고 엄청나냐? 지옥 음식은 썩은 노폐물과 배설물이고, 지옥 집은 펄펄 끓는 썩은 물 속의 집이지 않냐. 이 정신 나간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사람을 꾀냐? 완전히 돌아서 <뇌>가 ‘인분 덩이’가 되었구나. 나는 ‘천국’에서 산다. 내게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냐?” 하고 책망했다. <말>이 ‘검’이 되어 사탄에게 꽂히니, 사탄은 사라졌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권’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랑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새 역사에서 휴거된 자들>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못 된다. 우리는 시대 최고의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고로 아무 말이나 통하지 않는다. <구시대>는 말씀이 하늘을 찌르고 뚫고 올라가도 ‘구시대 주관권 영의 세계, 낙원급 천국’이다. 구시대 교회가 크고 전체를 금칠했다 해도 부러워하겠느냐. 참새들이 백조 앞에서 자기들이 대궐 지었다고 집 자랑하고, 궁 자랑하고, 음식 자랑하면서 집들이하니 오라고 하면 백조가 가겠느냐. 눈이나 깜빡하겠느냐. 대답이나 하겠느냐. 백조가 왜 눈도 깜빡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겠느냐. 참새가 백조를 모르고 말하기 때문이다. <구시대> 앞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서 휴거된 자들>이 그러하다.

9. 자기를 몰라주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새 역사에서 휴거된 자들>도 그러하다. <구시대>가 몰라주니,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린다.

10. 고양이가 호랑이에게 보고 싶다고 하면, 대답할 호랑이가 있겠느냐. 호랑이가 대답을 안 하니 고양이가 자기 말을 다시 들어 보라고 하며 또 말한다. 그런다고 호랑이가 “네 말을 진작 들어 보고 대답할 걸 그랬다. 후회한다.” 하며 입

을 열겠느냐. 고양이가 10년 동안 이빨로 무는 연습을 하고, 10년 동안 앞발로 때리는 연습을 하고, 각종 짐승에게 안 밀리려고 20년 동안 운동하고 단련했다고 한다고, 호랑이가 고양이 앞에서 입을 열겠느냐. 고양이가 자기 주관권에서 왕 살아 먹는다고 큰소리쳐도, 호랑이는 안 알아주고 대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시대>가 아무리 큰일을 하며 뭘 한다 해도 그들은 ‘그 위치’에서 살아 왔고 ‘그 위치’에서 보고 판단하며 자기들 생각만 하니, <새 시대 휴거된 자들>은 대답하지 않고 갈 길을 간다.

11. <화물 열차를 모는 자>에게 <자가용 주인>이 말하기를 “내 차도 상상도 못 하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하면, 달리던 열차를 멈추고 보겠느냐. 화물 열차에 짐을 싣는 과정을 3~4일 동안 봐서 지겨운데, 굳이 달리는 열차를 세우면서까지 또 보겠느냐. 안 통하는 이야기다. <인력거를 모는 자>나 <지게질을 하는 자>에게나 그 말이 통하여 구경하겠다고 한다.

12. <구시대>나 <비진리의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이 최고인지 들어 볼래?” 한다고, <섭리인들>이 그 말을 듣겠느냐. 그런 바보가 있겠느냐. 이는 <그들의 말에서 최고를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막에서 큰 돌을 찾는 격’이다.

13. <실체>가 있어도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좌우되고, <실체>가 있어도 ‘내용을 어떻게 써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결재’가 좌우된다.

14. 좋은 돌, 좋은 나무, 좋은 존재물이라도 사진을 잘못 찍어서 보내거나 잘못 말하면 나쁘게 보이고, 나쁜 돌, 나쁜 나무, 나쁜 존재물이라도 사진을 좋게 찍어서 보내거나 좋게 말하면 좋게 보이게 된다. 판단이 지혜이니, ‘수학’으로 판단하고 ‘실물’로 확인해라. 가령, 높이 4m 돌이라도 각도와 거리를 잘못 찍어서 보내면, 10cm 돌로 보인다. 고로 사진에서 돌이 작아 보여도 확인하면 안 속고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이다.

15.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국가에서 큰 직책을 맡아서 일했는데, 윗사람들에게 어떤 보고를 해도 윗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니 믿고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윗사람에게 보고해도, 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니 다 믿고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꼭두각시들이 많습니다.” 했다.

16.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국가에서 큰 직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서 일하던 자가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윗사람에게 허위로 보고하면서, 곧 큰일이 일어나니 돈으로 막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윗사람은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니 다 믿고 해 줬습니다.” 했다. 섭리사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 절대 ‘확인’하고 해라.

17. 근거 없이 속일 수는 없으니,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10배, 20배 더해서 만들어서 위에 허위로 보고한다. 그리고 결재를 받는다. 하나님이 보고를 받고 확인하시면, 그 대가를 10배, 20배로 더 갚아 주신다.

18. <기도>가 막히면, 생각이 막히고 다 막힌다.

19. 사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앎으로 이기기도 한다.

20. 모르면, 사탄이 역사하게 된다. 알고 행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사탄을 이긴다.

21. 또 사탄은 ‘담대함’으로 이긴다. 담대히 행하면, 사탄을 이긴다.

22. <주인>을 만나야 잔치한다.

23. <신부>를 만나야 잔치한다.

24. <신랑, 신부>가 만나야 잔치하듯이, <삼위와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만나야 잔치한다.

25. 흐지부지하는 자는 화장실 갔다가 밑을 안 닦고 나오는 자와 같다.

26. 하나님과 성령께서 꿈으로 계시해 줬는데도 깨닫기 위해 현실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고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
27. 하나님과 성령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면, 그 꿈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현실과 연결 지어 답을 얻어야 목적을 두고 진행하게 된다.
28. 인생은 고생돼도 사는 재미다. 섭리 인생, 휴거 인생도 그러하다.

<2017년 1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마음과 생각이 둔한 사람은 닦쳐야 알고, 꺾어야 알고, 몸을 눌러야 느끼니 그제야 충격을 받는다.
2. <때>는 '그때 그 순간'이다.
3. 만날 자도, 부를 자도 '그때 그 순간' 불러야 된다.
4. 전할 말도 그 말을 전달할 자가 앞에 지나갈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듯이, <새벽잠>도 '눈 떴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일어나야 된다.
5. 생각났을 때 '그때 그 순간' 기록도 하고 실천도 해라.
6. <그 순간>은 '그 순간'으로 행해야 된다.
7. (새벽 계시) 그렇지 않아도 순간 네 눈을 피해 마음먹고 빨리 앞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빨리 할 말을 안 하면 할 수 있겠느냐. 모든 일도 그러하니, <그 순간의 일>은 '그 순간'에 대처해라.
8. 온 나라 백성들이 말할 일도 순간 지나간다. 그때 그 순간에 빨리 해야 된다.
9. (새벽 계시) 청중집회가 끝나고 네 눈을 피해 빨리 출구를 빠져 나가려 재촉하면서 나가는 자다. 그러니 그 순간 빨리 쫓아가서 할 말을 해야지,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냐. 빨리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 할 말을 해라. 그래야 '말'로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는다. 부르니, 놀라서 서지 않느냐. <새벽잠>도 '순간 번뜩 눈을 떴을 때, 그때' 주를 부르고 성령을 부르며 일어나라.
10. <잠언>도 '순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순간' 써야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원어 그대로 쓴다. 늦으면 원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쪽 방향으로만 쓰게 된다. 전도도, 관리도, 말씀 강의도, 할 일도 그러하다.
11. 마음과 생각이 둔하면, '순간에 오는 기회'를 못 잡는다.
12. 수년 동안 기도하고 원하던 것이 '순간' 올 때가 있다. 그때 자기가 '순간, 빨리' 그 기회를 잡아 행할 것 같지만, 평소에 하듯 해진다. 고로 뺏기게 된다. 그때 뺏기고 다음 기회가 오면, 더 어렵게 된다. 돈도 더 쥐야 되고, 더 몸부림쳐야 겨우 얻는다.
13.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말하기'다. '실천하기'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순간 앞에 섰다가 지나간다. 그때 그 순간 '할 말'도 하고 '실천'도 해야 된다.
15. 순간 온 기회다. <그때 그 순간> 해야 '살 것'도 사게 되고, '할 것'도 하게 되고, '얻을 것'도 얻게 된다.
16. 순간의 기회가 오면 그때 그 순간에 해야 '자기 때'를 안 놓치고 실천하여 만사에 성공한다.

17. 사고가 날 때도 ‘순간’ 순발력 있게 실천하는 자만 위험도, 사고도, 죽음도 면한다.
18. 1분 있다가 가스가 폭발한다 하자. ‘그때 그 순간’ 재빠르게 나와서 50~100미터는 도망가야 된다.
19. <순간 빨리 생각>하고 <순간 빨리 실천>하는 자는 ‘승리’한다.
20. 골문에서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골을 넣어 처리하듯, 만사에 예리하게 생각하고 실천하여라. ‘순간의 기회’다.
21. 종을 때리면 순간 울리듯이, <자기 생각>도 <몸>도 ‘순간 반응하고 행하기’다.
22. <순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둔감한 자’다. 고로 기회가 와도 놓치고 실패하여 한탄하고 괴로워한다.
23. 많은 자들을 보아라. ‘순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 실천하지 못해서’ 묶여 끌려 다니고, 수치와 곤욕과 창피와 갖은 고통을 당한다.
24. 사탄도 ‘순간 생각하지 못하고 순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을 끌고 간다.
25. <머리가 좋고 생각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순간 생각, 순간 실천’을 잘한다.
26. <평소에 늘 순간 생각하고 순간 실천한 자들>이 ‘순간의 기회’가 왔을 때 ‘순간 생각’도 잘하고 ‘순간 실천’도 잘하여 ‘순간 해야 될 일들’을 잘 처리한다.
27. <순간의 일들, 순간의 기회>는 ‘초침’이 가듯 함께 지나간다.
28. 그때 그 순간 그 기회다.
29.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만 된다.
30.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제시간에 칼날같이’ 행하신다. 삼위의 대상이 되려면, ‘신같이’ 행하여라.
31. 벌레를 순간 봤을 때 때려잡듯이, ‘순간 생각하고 실천’하여라.
32. <미련한 자>는 ‘도가니 속의 쥐’를 보고 ‘쥐가 왜 저기 들어갔을까?’ 생각한다. 필요 없는 생각이다. 쥐가 도가니에 기도하러 들어갔겠느냐. 목적이 있어서 들어갔으면, 그냥 봐주려고 하느냐. 보는 즉시 도가니에 뜨거운 물을 넣고 죽여야 된다. 쥐는 온 동네, 온 민족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인이 농사지은 것’을 다 잡아먹는다. 고로 쥐는 확인할 것도 없이, 보는 즉시 잡아 죽여야 된다.
33. 지혜를 배우고 받은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일을 ‘쉽게’ 한다.
34. 교회도 <실천하는 지혜자 한 명>만 있으면, 할 일을 다 해서 고통을 안 당하고, 생명도 안 빼긴다.
35. <미련한 자>는 겨울에 방에서 이불과 뜨거운 열풍기를 두고, 생각을 못 해서 떨고 있다.
36. 사탄은 ‘순간’ 와서 유혹한다. ‘순간’ 싸워 이기면 된다.

<2017년 1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겪은 자>가 말해야 더 실감 나고 믿어진다.

2. <겪은 자>를 시켜서 증거하게 하여라.
3. <자기가 할 일>인데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손해가 가도록 상황을 틀어 놓으신다. 고로 억지로라도 굴복하게 하셨다. (한국 탄핵, 국회 여당 꼴이 이러하다.)
4. 천사가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행함으로 ‘타락의 길’을 갔듯이, 왕이라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탈선의 길’을 가게 된다.
5. <한 가지>를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거의 <다른 것>도 안 지킨다.
6. 도둑질한 사람을 잡으면, <그곳>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도둑질을 많이 했다는 것이 확인된다.
7.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만민이 다 보게 된다.
8. <정치의 일, 종교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며 기회를 주셨는데,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많은 자들이 그 일을 ‘자기 기회’로 삼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런 자들은 ‘새로운 때가 시작되기 전, 말세’에 하나님이 모두 드러내어 알게 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9.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정치·경제·종교의 일들을 맡겨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겉으로는 맡긴 일을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기회’로 삼고 ‘자기 계획의 뜻’을 이루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10.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 해당되는 자들을 ‘왕’이나 ‘주권자’로 세워 민족의 일을 맡기셨다. 그런데 임기 때 ‘자기 유익’을 위해 속으로 노략질을 하며 물질을 누리며 살고 향락으로 살았다. 영계에 가 보면, 그 영이 행위대로 기약도 없이 대가를 받고 있다.
11. 왕들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생명들을 죽이며 무참하게 행하기도 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까지 다 보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12. 육계는 ‘육신의 세상’이라서, <자기 때>에는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산다. 그러나 육이 죽고 <영>이 ‘영의 세상’에 가면, 그때는 ‘100% 영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인 고로 다 걸린다. <자기 육의 때>가 지나서 ‘영의 세상’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100% 자기 주권이 없어지니 행한 대로 다 받는다.
13. 자기 명예·물질·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왕이든 누구든 하나님은 다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 대가를 별로 받지 않고 사는 것 같다. <육>으로도 형벌을 받지만, <영>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 1000분의 1이라도 ‘자기 것’은 자기가 선악 간에 다 받는다. <육>은 이미 죽어서 끝났기에 다시 못 사니, 하나님은 ‘그 육이 세상에서 산 것’을 가지고 심판하여 그 <영>에게 대가를 주신다. 특히 육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준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고, ‘육신이 행한 것들’을 다 찍어 놓고 보여 주면서 “네가 이리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으니, 그 행위대로 받아라.” 하고 선고하신다.
14. 국가나 종교나 ‘하나님이 맡긴 일’을 하면서, ‘몰래 속으로 노략질하는 자들’을 놓고 매일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다.
15. 섭리사에서도 주가 맡긴 대로 안 하면 모두 보고 답답하니 고치게 한다. 고치라고 해도 안 하면, 다른 자를 세운다.
16.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좋은 세월 다 가고 손해가 간다. 고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17.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어떤 조직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 다 고하게 하시고, 다 쪼개지고 깨지고 분열되게 하신다. 그리고 고치게 하신다. 지도자가 불법으로 행하면, 그로 인해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다 고치게 하신다. - 일을 맡은 자들이 충성으로 해야, 개인·가정·교회·민족·시대가 화목과 화평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18.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무능하고 무지하면, 따르는 백성들도 고생이 많다. 독재주의자들은 특히 ‘자기 머리 하나’로 하니, 더 무능하다. 왕들은 여러 사람을 세워서 의논하고 개성대로 여러 생각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된다.

19. 지도자뿐 아니라 개인·가정·민족·세계 모두 ‘전능자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그 보낸 자’와 하나 되어서 해야 된다.

20. <인간>은 아무리 큰 사명을 받아도 ‘인간’이다. <왕들>도 <주권자들>도 임기가 끝나면 ‘하나의 평민’이다. 자기 임기 때 충성하지 못하면, 불쌍하게 된다. 억울하게 된다.

21.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주인이 열매 없는 나무는 다 베어 심판한다.

22. 일을 맡은 자들은 ‘실속 있는 사명’을 해라. <목숨 걸고 충성한 자>만 빛난 인생이 되어 스스로 한 일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보는 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백성들도 길이길이 증거하며 기뻐한다.

2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나님이 보낸 자와 같이 해라.

24. 정치 지도자들도이고 종교 지도자들도이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절대적으로 하면, 영원히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이것을 보고 잘해라. 잠시 누리는 것만 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취하고 꼬불치지 말아라.

25. 자기가 상을 만들어서 얻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해라.

26. 100%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는 데’만 충성하여라. 그러면 ‘전능하신 절대자’가 주신다. 욕이 쓸 것을 주시고, 영이 영원히 쓸 것을 주신다.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이다. 맡긴 일은 겉치레로만 하고 속으로는 자기 뜻을 이루며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뒤집어져서 화산 폭발되듯 한다.

27. 정치의 일도, 종교의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킨 일, 맡긴 일’이라는 것을 알고 100% 제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어렵히 알고 해 주시지 않겠느냐.

28. 자기가 잘나서 맡긴 줄 알고, 자기 노력으로 스스로 된 줄 안다. 강도나 도둑이나 악한 자나 자기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그리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국가의 일, 정치의 일, 종교의 일’ 등은 다 ‘하나님’이 맡긴 것이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맡겨 놓으면 마음 변하고 행동 변한다. 과일도 변하면, 썩는다. 사람도 변하면, 욕도 영도 썩는다.

29.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기회’로 삼지 말아라.

30. <하나님이 땅에 보낸 구원자>가 ‘민족과 종교의 일에 대한 문’을 열고 닫는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민족의 일, 종교의 일을 놓고 기도해라. 보낸 자와 함께 간구해라. 하나님이 다 드러내고 멸하도록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공의롭게 행하신다.

31. 하나님은 보낸 자와 함께 ‘국가 주권자가 불의하게 행한 것’을 닫으셨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어 놓으셨다. (한국 대통령 탄핵 건, 불법은 닫고, 되는 길은 열어 놓으셨다.)

32. 하나님은 그 시대 보낸 구원자와 함께 ‘불의의 것’은 닫고, ‘의의 것’은 열어 놓고 행하신다.

33. 하나님은 ‘구시대 문’은 닫고, ‘새 시대 문’은 열어 놓으셨다

<2017년 1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이 잘못해서 고생하고, 사고 나고, 망하고, 죽기도 한다.
2. 잘하면, 모두 잘된다.
3. 사람이 못해서 안 되고 망한다.
4. 매일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라.
5. 생각은 여러 가지로 많으나, 그중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골라야 된다.
6.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게 하는 방법’은 많다. 모두 자세히 섬세히 보고 ‘제일 합당한 것’을 골라서 하기도.
7. 많은 생각과 방법 중에 ‘단점 없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 있다.
8. 일을 하기만 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다. <최고 좋은 방법>으로 한 자가 잘한 자다.
9. 농사도 아무나 다 짓는다. <최고 좋은 방법으로 농사를 짓는 자>가 최고로 잘된다.
10. 전도나 설교나 강의나 관리도 하라고 하면 다 한다. <최고의 방법 =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자>가 잘한 자다.
11. 기도도 하라고 하면 다 할 줄 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자>가 잘하는 자다.
12. 시켜서 못 할 자가 없다. 시키면 왕도 하고, 세상 그 어떤 일도 한다. 그러나 100개 중의 1개를 하느냐, 10개를 하느냐, 30개를 하느냐, 70개를 하느냐, 100개를 다 하느냐에 따라 차원이 다르다.
13. 하나님은 <제대로 하는 자>를 데리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자신의 뜻’을 행하신다.
14.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다 잘하는 자’가 해야 된다.
15. 제대로 안 할 것이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제대로 안 하는 자는 제대로 하는 자를 도와서 해라. 그러면 자신도 그 일을 제대로 같이 한 것이 된다.
16. 제대로 못 하면, 보는 자가 바로 안다.
17. 제대로 해 놔야 문제가 안 생기고, 하나님도 함께하신다.
18. 인생은 잘하고 못하는 대로 수백만 층으로 살아간다.
19. 사람의 육신이 저마다 잘하고 못하는 대로 그 ‘영의 형체’가 형성되고, ‘그 영이 거할 천국의 위치’가 결정된다.
20. <매치>다. ‘세울 돌’을 찾았으면, ‘그 돌을 받칠 좌대 돌’을 매치시켜 찾아야 된다.
21. 커도 작아도 ‘매치’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된다. 결혼하는 상대도 마치 ‘수석과 수석을 받칠 받침돌’처럼 자기와 맞고 매치가 돼야 한다. 그래야 합당하고 아름답다.

22. 하나님도 땅에서 ‘그 일의 합당한 자’를 찾고 만들어서 쓰신다.

23. <하나님께 합당한 자>는 마치 조각가가 조각하듯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서 쓰신다. 고로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만드는데 자>는 그가 제 갈 길을 못 가게 나무 자르듯 자르고, 돌 조각할 때 조각하듯 만들어서 쓰신다.

24. 많은 인생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지, 많은 일 중에 어떤 일이 좋은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 가치를 깨달아라.

25. <아는 자>가 ‘주인’이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시대를 알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메시아’로 보내어 쓰신다.

<2017년 1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전문가가 되어 행한다.
2. <자기가 좋아서 산 물건>은 시간이 가다 보면 “괜히 그때 좋아서 샀네.” 하고, <성령과 같이 산 물건>은 세월이 가도 “정말 잘 샀다.” 한다.
3.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은 선과 악을 막론하고 정말 열심의 불이 타서 행하여 기어이 이룬다.
4. <온전한 일>을 좋아하며, 그 일을 삼위와 주와 함께 행하여라.
5. 자기가 좋아하여 행하면 기쁨과 흥분이 연속되기에, 어떤 일도 희열을 느끼면서 불이 타서 행한다.
6. 하나님도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개성에 따라 합당하면 맡기신다.
7.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보면, 그 일에 ‘자기 소질, 재능’이 같이 있으니 좋아하는 것이다.
8. 오직 ‘삼위’를 중심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라.
9. 좋아하려면, ‘그 일’에 대해 알아야 된다. ‘차원’을 높여야 된다.
10. 자기 마음이 ‘육적’으로 흐르고 ‘불의와 옳지 못한 쪽’으로 흐르면, 사울 왕같이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11.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직 ‘구원자’와 일체 되어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하며, ‘삼위의 생각’대로 ‘삼위가 원하시는 일’을 하여라.
12. 자기 의지로 행하면서 속으로 “주여! 주여!” 부르며 행한다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단정 짓지 말아라. - 정말 주의 뜻인지 확인하고, 주와 교통하면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가 머리 되어 사는지, 정말 주가 머리 되어 사는지 꼭 자기 생각과 행실과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행해라.
13. 이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행하면, ‘엇나가고 빛나간 화살’같이 되어 모든 수고가 헛되다.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육신은 ‘기본’을 안 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2. 기본도 안 잡고 기본도 안 먹으면, 존재를 못 한다.

3. 잠을 안 자면 안 잘수록 잠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기본’도 안 자고는 못 견딘다. ‘최소한 기본’은 해야 존재한다.
4. 잠도 ‘기본’은 자되, 나머지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 적어도 ‘기본 3~4시간’은 자야 된다. 잠이 늘면 ‘7~8시간’, 혹은 ‘10시간’까지 자게 된다. 얼마나 잠을 견디면서 ‘기본’만 자고, 체질을 개선하여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성공하게 된다.
5. 생활 속에서 ‘기본으로 할 일’을 하되,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더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6. 돈도 ‘기본’은 써야 존재한다.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나 연단하고 열심히 하며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성공과 실패, 생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7. 집을 지을 때도 ‘기본’은 안 만들 수 없다. 벽, 지붕, 주방, 화장실, 방 등 ‘기본’은 꼭 만들어야 된다. ‘나머지’는 얼마나 공간을 활용하여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의 크기, 집의 활용도>가 좌우된다.
8. 인생 삶이 ‘기본 이상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먹고, 자고, 입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성공할 시간’이 없다.
9. 생활비로 ‘기본’이 들어가면, 현상 유지다.
10. 생활비는 ‘기본’만 쓰고, 나머지는 모아서 ‘목적’을 두고 쓰면서 행해야 발전하고 성공한다.
11. 시간도 ‘기본’의 일에 기본을 쓰되, ‘나머지’는 최고로 귀히 써야 성공한다.
12. <기본>은 ‘기본’이다. ‘기본’은 꼭 해야 된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 ‘기본’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나머지’가 적어지니, 그것으로는 잘 안 되고 성공하지도 못한다.
13. 다이어트를 할 때도 ‘기본’까지 안 먹고 다 빼면 탈진, 영양실조가 와서 건강이 무너지고 다이어트도 실패한다. 기본은 먹으면서 운동하고 최대한 행해야 순리적으로 되어, 건강도 안 무너지고 살도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순리로 ‘기본’은 하되, ‘나머지’는 최고로 쓰기다.
14. 새벽 1시 기도를 하려면, 밤 9~10시에는 꼭 자야 된다. ‘기본’은 꼭 자야 <새벽 1시 기도>에 성공한다. <기본>도 안 자고 ‘새벽 1시 기도’를 하면, 집이 무너지듯이 결국 1시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무너진다. 꼭 ‘기본’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단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습관을 들여야 된다.
15. 말씀도 ‘기본’은 밥 먹듯이 잠자듯이 듣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고 죽게 된다.
16. 어떤 사람은 ‘기본’까지 안 하려고 도전하다가 무너진다. 이는 ‘지혜’가 아니다. ‘미련한 자’다. 집을 지을 때 ‘방’을 크게 한다고 ‘벽’을 기본도 안 되게 얇게 하면, 결국 벽이 무너진다.
17. <기본>은 꼭 해야 된다. 신앙도 그렇게 하겠다.
18. <기본>을 안 하면 ‘본인’도 존재하지 못하고 ‘보는 자들’은 기분이 나쁘다.
19. 한 나라의 주권자도, 종교인들도 ‘기본’도 안 하니 무너진 것이다.
20. 성경의 <구름 비유>도 그러하다. ‘기본’만 알았어도 성경을 푸는 것이 안 무너진다. ‘<구름>은 전혀 ‘사람’이 아니다.’ 하며 기본 없이 <하늘 구름>만 생각하니, ‘메시아관’이 무너진 것이다. 그러다 결국 ‘메시아를 맞는 데 실패’한 것이다.

21. <기본을 벗어난 자들>은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22. <신앙생활>도 아무리 못 해도 ‘기본’을 벗어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존재를 못 하게 된다.

23. <정치>도 기본이 밸런스다. ‘기본=밸런스’가 안 맞으면 넘어진다.

24. <교회 운영>도 밸런스다. 전체 각 부서와 기관이 팽팽하도록 관리하고,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교회가 잘된다.

25. 교역자가 어른들만 맞춰 줘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만 맞춰 줘도 안 된다. 전체를 잘 맞추면서 가야 100% 잘된다.

26. <기본>은 꼭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도전하는 대로 육의 성공이 좌우된다.

27. 신앙도, 인생 삶도, 할 일도 ‘기본’은 꼭 하면서 ‘나머지’는 최대한으로 도전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28. <기본>은 해야 존재한다.

29. 물건을 사도 ‘기본 값’은 줘야지 그냥은 못 산다. ‘기본’을 얼마나 정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커지거나 작아진다.

30. 하나님과 성령님께 간구할 때도 ‘기본’은 값을 주겠으니, 잘되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31. <기본>을 따지면, 각종 것들이 분별된다.

32. 작품과 성전을 살 때 ‘기본 값’을 많이 줘도, 그 작품과 성전이 얼마나 ‘기본 값 이상을 하느냐’가 문제다.

33. 어떤 작품을 살 때, ‘실제 그 작품의 값’이 ‘주인이 최고로 부르는 값’보다 10배나 더 가치가 있는데도 주인이 모르고 판다. 집이나 땅은 ‘정해진 값’이 있지만, <작품>은 ‘그 작품의 가치를 아는 자’만 그 값을 제대로 안다.

34.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너무 다르다. 어떤 작품을 월명동에 놓으려면, 월명동은 ‘하나님의 궁’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 때마다 꼭 하나님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보고 사 놓는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사다 놓으려면, 어떤 작품의 주인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따로 안 팔고 ‘다른 것들’과 같이 묶어서 판다. 고로 ‘마음에 드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도 같이 사 올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반값에 사 온다.

35. 그렇게 사 온 작품들 중에서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는 거기까지 못 보지만, 이것은 실제 값보다 10배, 20배 비싼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에 갖다 놓으려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만들었다.” 하셨다. 수억 년 전에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수억 년>이 ‘천문학적 기간, 상상도 못 하는 기간’이지만, 나 여호와에게는 그렇지 않다. 내가 수억 년을 못 내다보겠느냐. 비유컨대 3억 년 전에 너 주려고 만들었다 하면,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었느냐고 한다. 수억 년을 ‘나의 날’로 계산하면 수십 년, 수백 년밖에 안 된다.” 하셨다.

36.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로 주신다. 첫째, 아예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그 마음에 맞게 공장에서 만들듯 태초에 만들어서 주기도 하신다. 둘째, ‘극적으로 삼위를 사랑하며 섬기는 보화 같은 자’에게 주려고 아예 만들어 났다가 그런 자가 나타나면 그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 주기도 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주려고 수억 년 전에 만들었다.” 하신다. 셋째, 원래는 이 사람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가 불신하고 나가거나, 혹은 책임을 못 하니, ‘조건을 세운 자’에게 주기도 하신다.

37. <월명동에 있는 작품들>은 ‘사연의 눈을 못 뜬 자,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는 봐도 모른다. ‘작품을 볼 줄 아는 자’가 말해 주지 않으면, 얼마나 값있고 비싼지 모른다. 어떤 것은 아예 <성약시대 때> 쓰려고, 월명동 지형같이 만든 것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지만, 아담이 타락하여 역사가 깨지고, 예수님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일찍 죽고, 성약역사를 월명동에서 시작할 줄 알았냐?” 한다. 내 말을 들어 봐라. 하나님은 항상 <3단계>로 역사하신다. 이것은 ‘기본’이다. 땅 - 공중 - 하늘, 시작 - 과정 - 끝, 소생기 - 장성기 - 완성이, 상 - 중 - 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3단계>로 역사를 펴신다. 구약 - 신약 - 성약이다. 구약 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구약 - 신약 - 성약>, 곧 <구약 소생기 - 신약 장성기 - 성약 완성이 3단계>로 역사를 펴 나가신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기어이 하려고 <성약역사>를 편 것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안 하고 살았어도 <구약시대>는 정한 기간이다. 잘한 그 터전 위에 <새로운 신약시대>가 온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도 때가 되면 그 육신은 죽고, <신약시대>도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시대는 간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농사를 잘 지었으나 못 지었으나 결실의 때를 맞듯이, <신약>이 가니 <성약>이 왔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며 <마지막 결실의 시대, 성약 때> 쓰려고, 130억 년 전, 100억 년 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예 ‘성약역사에 줄 것들’을 계획하셨다. 인간에게는 천문학적인 130억 년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기간에 속한다. 고로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눈에 보시고, 계획하시고, 인간들이 못 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행하셨다. <인간>은 계산하려면 천문학적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로 계산하니 금방 안다. <인간>은 따져서 알고, <하나님>은 쳐다보면 답이 보이니 즉시 아신다. 하나님과 일체 되면 우리도 안다.

38. 주산, 암산, 부기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금방 안다. 10:1, 100:1로 축소해서 계산하니 10배, 100배 빠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축소로 계산’하니 순간 계산하신다. 이것을 ‘확대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는 ‘답’이 보이니, 사랑하는 자가 물으면 묻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제를 다 이야기하기도 전에 ‘답’을 알고 답하신다. 하나님은 “문제가 있으면 물어라.” 하셨다.

39. 월명동에 갖다 놓을 작품들을 보면서 이 중의 무엇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작품이냐고 하니, 하나님은 “개성이다. 각각 개성이면서, 그 중의 하나가 좋은 것이 있다.” 하셨다. 그러면서 어떤 것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월명동에 갖다 놓으려고 수십억 년 전에 만들었다.” 하셔서 깨닫고 사 왔다. 그 작품을 판 주인은 모르니, 그만큼 값을 몰랐다. 하나님이 수십억 년 전에 만들었다고 하셔도 <인간의 날, 인간의 방법>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져야 이해가 잘된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입장>에서 풀면, 이해가 잘된다.

40. <인간>은 ‘초침’으로 따지니 천문학적 숫자라서 복잡하고, <하나님>은 ‘년’, 혹은 ‘1세기’로 따지니 간단하다.

41. <인간>은 ‘1초마다 돌 하나씩’ 갖다 놓고, <하나님>은 ‘한 시간마다 돌 하나씩’ 갖다 놓으신다. 고로 세기 쉽고, 계산하기 좋다. 이것이 ‘인간과 신의 방법론 차이’다. 복잡한 것은 외울 때 ‘핵’만 외우면, 잘 생각한다. <월명동의 돌, 나무, 샘들>을 다 외우려면 잊는다. <월명동>만 외우면 그 안의 돌, 형상석, 나무, 샘 다 생각한다. <섭리역사>를 다 외우려면 잊는다. 핵인 <주 머리 생각 하나>만 외우면 다 생각한다.

42. 하루에 행한 것 중의 ‘핵’만 기록해라. <핵>을 보고 ‘하루의 일들’을 연결하면 다 생각한다. <핵>도 생각 안 하면 다 잊는다. 암기법이 있다.

43. 주 머리에 ‘한 교회의 한 명’만 생각하면, 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준다. ‘한 명’도 생각나지 않으면, ‘전체’도 생각이 안 난다.

44. 주 머리에 ‘그 교회의 한 명도 기억나는 자’가 없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는 캄캄하고 마음이 안 간다. <주 머리에 기억나는 자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 교역자가 됐든지, 그 누구라도 있어야 된다.

45. 세계 각 나라도 그러하다. 주 머리에 ‘그 교회, 그 나라의 한 명’이라도 기억나도록 노력 안 하는 교회도 많고 나라도 많다.

46. ‘누구’ 하면 어느 교회, ‘누구’ 하면 어느 나라를 기억한다. 교회나 나라보다 ‘사람’을 기억한다.

47. 하나님도 ‘사랑하는 누구’ 하면, ‘어느 나라’ 하신다. 그 나라에 ‘사랑하는 자’가 없으면, 그 나라를 안 봐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행하신다. 하나님과 아무 연관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시고, 아는 자가 있으면 멈추고 들렀다 가신다.

48. <하나님과 주가 기억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49. 그 교회도, 그 나라도 ‘하나님과 주가 기억하는 자’가 없으면, 보통으로 대한다. 그 교회에 ‘주가 기억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없어지니, 그 교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모두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나님과 주가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간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50. 메시아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셨다가 ‘잘 아는 자인 마리아의 집’에 들르셨다. ‘모르는 자의 집’에는 안 가셨다. ‘아는 자’가 편하기 때문이다.

51.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시다가 ‘잘 아는 자, 기억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들르셨다.

52. 성령도 주도 매일 각자에게 가신다. <합당한 자, 사랑하는 자>에게 들르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과 주가 들러도 보통으로 대한다. 그러면 성령과 주는 권위가 있으니 그냥 돌아간다. 성령과 주가 왔다가 그냥 가니,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왔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니, 성령과 주를 불렀다. 그때는 불려도 그냥 ‘천사’만 보낸다. 평소 정신 상태를 보니,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다.

53. 성령과 주는 새벽마다 모두에게 다 간다. 그리고 개인마다 <조건이 된 자>는 만나 준다. <조건이 안 된 자>는 기도나 하고 가라고 감동만 주고 간다.

54. 성령도 주도 들르면 표가 난다.

55. 합당하면, 늘 동행하신다.

56. 아픈 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자기도 봐 달라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듯이, 성령과 주께 자기에게도 들르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 성령과 주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서 있다 그냥 가기도 하고, 몇 마디 하고 가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늘 동행하기도 한다. 자기가 대하는 대로 대해 주심을 알고 행해라!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더 아는 자가 더 애간장이 탄다.

2. 삼위는 다 아시니, 사람보다 더 애간장이 타신다.

3.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자기 명상’이다.

4.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성령께 주께 알리고 말해야 ‘간구’다. ‘기도’다.

5. <명상>은 자기 주관권 생각의 회전이다. 하나의 마음의 도를 닦는 시간, 깨닫는 시간에 불과하다.

6. 어떤 것이든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에 달렸듯이, ‘자기 생각과 몸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고 행하기’에 달려 있다.

7. <인간 스스로> 만들면, ‘인간 선’에서 끝난다.

8. <숫자 하나>로 움직여 보고 어디에 써 봤자, ‘그 숫자’로만 쓰여지고 끝난다.
9. <자기 숫자>에다 ‘또 다른 숫자’를 더하고 곱해야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다른 숫자에 해당하는 <상대>가 ‘사람’이나 ‘절대신 삼위일체’냐에 따라서 ‘육신 세계’에서 끝나느냐 ‘영원한 세계’에서 사느냐가 결정된다.
10. 자기 인생을 가지고 날고 기며 사는 자도 있다.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다. 그러나 ‘절대자 삼위일체와 얼마나 연관되어 사느냐, 삼위일체께 어떤 사명을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좌우된다.
11. 삼위일체는 인생들이 삼위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다 보시고 총 관리하시고, 선악 간의 행위에 따라 다 갚아 주신다.
12. 삼위의 법은 무한정하다. <인생들의 행위>에 따라서 ‘수조 가지’로 다스리시고 갚아 주신다.
13. 삼위일체가 창조한 세상과 인생들이니, 사탄과 악한 영들과 땅의 인생들과 동물들과 만물들을 놓고, 전능자로서 행할 것을 행하신다.
14. 인간이 ‘자기 스스로 행한 일’도 그 행위에 따라 선악 간에 받게 하셨으니, 자기가 절벽으로 가면 힘들고 위험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길을 닦고 수고하며 행하면 편하게 가기도 한다. 인생들에게 <자유 의지 선택권>을 주어 ‘선하게’ 살게 하셨다. 그러나 어떤 인생들은 ‘선하게’ 살기 힘들니, 쉽게 불의로 ‘악하게’ 살기도 한다. 그러면 ‘자신의 악한 행위’로 인해 대가를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신다.
15. <자기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삶과 행위’대로 ‘그 영’이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셨다.
16.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가 보낸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르쳐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삶과 행위’대로 ‘그 영’이 구원받아 낙원 천국, 혹은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영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셨다.
17. <세상에서 자기 욕이 하는 일>마다 잘 다스려야 사고도 안 일어나고, 문제도 안 생기고, 잘되고 형통한다.
18.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잘 다스리고, 글을 쓸 때 글을 잘 다스리며 쓰고, 길을 갈 때 길을 안전하게 잘 가도록 다스리고, 잠자고 깨는 시간을 잘 다스리고, 물건을 살 때 잘 판단하여 합당하게 사도록 다스리고, 먹을 때 잘 다스리면서 먹어라. ‘자기를 잘 다스리기’다.
19. <자기>를 잘 다스리면, ‘자기에게 속한 것’도 잘 다스린다.
20. 사람은 ‘자기 지능’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술과 능력’대로 다스린다.
2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자기를 다스려라. 그리하면 ‘만사’가 잘 다스려져, 형통하게 된다.
22. <전능자의 지혜>를 받고 행해라. 그러면서 <인간의 삶>도 배우고 알고 행해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23. 작은 물건이 큰 장소에 있으니, 큰 물건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작은 물건>은 ‘작은 장소’로 옮겨 놓고 <큰 장소>에는 ‘큰 물건’을 놔더니, 손도 마음도 편했다. 이와 같이 질서 있게 다스리면 편하다. 사람을 배치할 때도 그러하다.
24. <작은 자>에게 ‘큰 짐’을 지우면 오히려 힘들고, <큰 자>에게 ‘작은 짐’을 지우면 오히려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된다.
25. <자기 능력>대로 행하게 되니, <자기 능력>대로 자리에 앉히고 위치를 줘야 된다.

26.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본인 좋으라고 ‘더 높은 자리’를 주면 어지러워서 공포를 느끼고, 불편해하고, 사고가 난다.
27. <절벽과 암벽을 타는 능력자>에게는 ‘기암절벽 길’을 주고, <평지를 나는 자>에게는 ‘평지’를 줘야 더 날고 긴다. 배치다. 매치다.
28. <인간의 지체>를 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각각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해 놓으셨다. 이와 같이 ‘사명도 제 위치에 잘 배치해야 된다. 사명을 잘 배치해야, 그 위치가 ‘최고 좋은 자리’가 된다. 저마다 ‘자기에게 맞는 위치와 사명과 삶’이다.
29.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을 ‘각자의 사명과 능력’대로 그 위치에 배치해 놓고 살게 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30. 자기 위치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오히려 천벌을 어긴 것이 되어 심판받고 쫓겨남을 받게 된다.
31. 한 나라 주권자라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지능이 땅바닥에 붙어서 우상이나 섬기고, 우상 앞에 먹을 것을 놓고 절이나 하며 샤머니즘의 행동을 한다.
32. 한 나라의 왕들도, 주권자도 지능이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고로 무신론자가 되고 독재주의자가 되어 산다.
33. 왕 중의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는 ‘왕 중의 왕’이다.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 천하 최고의 왕’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천하 최고의 왕’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천하의 모든 자들의 것을 다 보고(報告)받으시고, 이 세상과 인생들을 합당하게 다스리신다.
34. 하나님이 보내신 왕은 세상 왕이나 주권자같이 5년, 8년, 10년, 혹은 독재를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임기를 마치고 끝나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4000년, 2000년, 1000년 동안 한다. 여기서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주 관권의 때’를 말한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신다.
35. 세상 주권자들은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늘과 땅 앞에 많은 부정을 저지른 연고로 ‘그 행위’대로 영과 육이 고통을 받고, 어떤 영은 지옥에 가서 갇은 고통을 받는다.
36. <세상 주권자들>의 임기가 ‘5년’이라 하자. 그러면 100년의 기간 동안 20명이 주권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1000년 역사 기간 동안 200명이 주권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하늘의 주권자>는 ‘1000년 동안’ 사명을 하니, 지구 세상의 왕 200명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다스리는 것이다. 그것도 ‘육계’뿐 아니라 ‘영계’까지 다스린다. 전능자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역사의 기간 동안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신다.
37.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그 시대 기간의 왕’이다. 계시록 19장에서 말한 왕이다. <구약시대 왕>은 4000년 동안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고,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 신약의 주권자>에게 주권이 넘어간다. <신약시대 왕>은 2000년 동안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고, 시대가 바뀌면 <새 시대 성약의 주권자>에게 주권이 넘어간다. 곧 <모세>를 통해 4000년 구약 주권자의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시던 하나님은 그 시대가 가니, <새로운 주권자 예수님>을 보내고 <신약 법>을 주시어 <예수님>을 통해 2000년 동안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셨다. 신약시대가 끝나니, <새로운 주권자>를 보내고 <성약 법>을 주시어 <시대 구원자>를 통해 1000년 동안 육계와 영계를 다스리신다. 교황이나 세상 조직의 사명자들은 그 밑에 속한 직책들이다.

1. <악>은 '자기가 의를 실천'함으로 없어진다.
2.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도 '자기가 의를 실천'함으로 없어진다.
3.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먼저 '생각'에서 나온다. '생각한 것을 확인하고 실천'하기다.
4. <정신과 생각의 능력>이 곧 '실천'이다.
5. 저마다 '생각하고 실천하기'에 달려 있다.
6. <생각>만 하고 말면, 그것은 하나의 '소모품'처럼 사라진다. <생각한 것>을 '실천'해야 보이고, 만져지고, 실체가 된다.
7. <생각만 한 것>은 '바람'과 같다.
8. <실천>해야 생각한 것이 '실존체'로 변화되어 존재한다.
9. <실천>하면, '다른 존재 세계'가 펼쳐진다.
10. <마음으로만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마치 '하늘의 구름 형상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별의별 구름 형상을 다 봐도 남는 것이 없다.
11. <실천한 것>은 실존체로 창조되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은 그냥 지나가서 모래 한 알만큼의 실존체도 남지 않는다.
12. <생각만 한 것>은 혼자 있게 되고, <실천한 것>은 실존체와 같이 있게 된다.
13. <실천>하면, 무에서 유의 세계가 창조된다.
14. <실천>은 '창조'다.
15. 실천의 대가다.
16. 인생은 '실천의 대가'로 존재하며 살아간다.
17. 가만히 있으면 '존재물의 탄생'도 없다.
18.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혼자' 남는다.
19. 인생은 '생각하는 삶의 맛과 보람, 실천하는 삶의 맛과 보람'이다.
20. 사람과 실천, 만물과 실천, 삶 속에서 실천, 전능자 삼위와 실천이다.
21. 실천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인생'이 된다.
22. 실천의 능력이다.
23. 스스로의 실천은 한계가 있다. 정신적·혼적·영적 실천, 전능자 삼위일체의 힘과 능력을 받은 실천은 차원이 다르다.

24. <실천>은 ‘표적’을 일으킨다.
25. 실천하지 않고서는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만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26. <생각 구상 실천>은 ‘실존체’를 만든다.
27. 먹는 것이 그리 중하나. 먹기 위해 사느냐. 귀한 인생, 먹자판으로 사는구나. 의롭게 사는 것이 문제다.
28. <짐승>은 ‘먹고 즐기는 삶’이다. <사람>도 짐승과 똑같이 ‘먹고 즐기는 삶’을 살면, 결국 짐승같이 남는 것이 없다.
29. <짐승>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남는 것이 없다. <사람>은 하나님과 구원자를 중심해서 의롭게 살면, ‘영’이 영원히 남아져 영원히 누린다.
30. <의롭게 사는 삶>이란, 무엇을 하든지 ‘전능자의 생각과 구상대로 사는 삶’이다.
31. 먹는 것도 중요하다. 꼭 먹어야 된다. 그런데 한계를 넘어서 ‘먹는 것만 목적’하며 살아가면, 몸만 키운다.
32.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내신 구원자와 함께 영원한 삶을 중심해서 의롭게 살기다.
33. <육신>만 위해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육’에서 끝난다.
34. 사람이 아무리 기뻐하며 살아도 가다가 끝나 버리면 허무하고,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인해 <그 영>이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육만 위해 사는 삶’은 허무할 뿐이다.
35. 실천할 것을 찾아보면 실천할 것이 ‘천 가지’나 되는데, ‘한 가지’도 실천할 것이 없다고 하며 허송세월하며 한숨 쉰다.
36. 깊이 기도해 보아라. 하나님과 성령께 물어보아라.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행할 육계와 영계의 일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인다.
37. 미리 완전하게 준비해 났다가, 때가 되면 빛같이 실천해라.
38. 명승지를 목적하고 가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곳보다도 못한 곳이 나와서 실망한다. 그러나 <목적지>는 그렇지 않다. 고생하며 희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예전보다 못한 때가 있다. 고로 실망하게 된다. 하지만 그곳은 <미래의 목적지>가 아니다.
39. <인생>은 ‘삶의 요리’다.
40.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시다. 그 무거운 입을 열게 만들어라.
41. <별>에 쏘게 하시고, <꿀>을 먹게 하셨다. (답 : 바라고 원하던 것이 있어서 비싼 경비를 들여서 확인했더니, 별것 아니었다. 너무 속상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더 좋은 것을 얻었다. - 어떤 사연인지 자세하고 깊은 비밀은 아직 인봉이다.)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2.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애간장 태우며 그렇게도 얻기를 원한다.

3. <필요한 자들>과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가니, 상호 존재한다.
4. 열 사람이 있는데, 물건은 한두 개밖에 없다 하자. 열 사람 다 그 물건을 필요로 하여 애간장 태우며 원한다면, 다툼과 싸움과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고로 사회생활 유지가 안 된다.
5. <필요한 자들>과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하니, 서로 이상적인 존재를 하게 된다.
6. <필요하지 않은 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산다. 반면 <필요한 자>는 구하려고 밤낮으로 찾아다니고, 애를 태우다가 찾으면 보화를 만난 것같이 기뻐하며 자기 것으로 삼는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필요성을 알고 깨달은 자>만 찾고 믿고 사랑한다. <그렇지 않은 자>는 하루 종일 평생이 가도록 관심 없이 살아간다. 몰라서 필요로 하지 않고 살고, 그 차원의 주관권에서 살지 않으니 필요로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전환>
8. <음식 맛>을 최고로 내려면 ‘때맞추기, 간 맞추기, 뜨겁게 혹은 차게 맞추기’다. <말씀의 맛>도 그러하다.
9. <음식의 때맞추기>다. <말씀의 때맞추기>다.
10. <음식 맛> 내기 진짜 어렵다. <말씀의 맛>도 그러하다.
11. 성령은 변함없으니, 자기만 때맞추어 하기만 하면, ‘삶의 최고의 맛’을 맞춰서 할 수 있다.
12. 자기가 현재에 도전하고자 한 데까지 최고로 했으면,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소원은 이룬 것이다. 거기서 또 오르면, 과거가 완전히 전환된다.
13. 맛 변하니, 땅콩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 인생도 변하면, 하나님이 취하실 수 없다.
14. <음식>은 ‘맛과 질’이고, <사람>은 ‘생각과 행위의 질’이다.
15. 진실로 충성으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 마치 모든 것들의 외형만 보고, 맛도 미도 가치도 모르고 사는 자 같아서 기쁨도 보람도 없다.
16. 하나님께 진실로 매달려야 해 주신다. 매달린 만큼 하나님의 생각대로 진실로 행해야 해 주신다. <전환>
17. <무력>으로 하면 자기 혈기로 하는 줄 알고 오히려 불신하고, <순리>로 하면 잘못된 것만을 위해 하니 더 충격을 받게 된다. (2016년 연말, 한국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보고)
18. <환난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19.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처리’를 하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못 당한다.
20.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21. 선(善)이라도 ‘실천’해야 이긴다.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물을 먹고 ‘변화’되어 종유석이 되고, 채소가 되고, 과일 열매가 되고, 곡식이 되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기하게 만

물을 창조하셨다.

2. 사람의 육신이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영의 형체가 변화'되고, 그 영이 변화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간다. 선의 영의 세계, 혹은 악의 영의 세계다.

3. 종유석이나,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동물이나 '좋게 변화되는 대로' <가치>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된다. 사람의 영도 육신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 '좋게 변화'되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된다.

4. 자기 육신을 가지고 메시아를 통해 절대자 삼위일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무한한 변화'를 이루어라. 그러면 '그 변화'로 인해 <육신 인생> 동안 가치 있고 보람되게 쓰고, <그 영이 영원토록> 황금성 천국에서 삼위를 사랑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살게 된다.

5. 이 시대는 <하나님이 새 시대 구원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제때 새롭게 변화'된다. <구시대 말씀>으로는 '구시대 급의 육과 영으로 변화'된다.

6. <동물>이 고기나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이나 물을 먹으면 '동물의 살로 변화'되지만,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살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구시대 사람들>이 구시대를 못 버리고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살면 '구시대 입장에서만 변화'되고, <새 시대 사람들>이 보낸 자를 알고 그를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새 시대 영과 육으로 거듭'나게 된다.

7.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시대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도 달라지고, '변화됨'도 달라지고, '그 영의 형체'도 달라진다.

8. 어떤 사람은 <시대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 사고대로 생각하고, 이성 사랑에 쓰고, 노는 데 쓰고, 재미있는 삶을 사는 데 쓰고, 먹고 사는 데 아이디어로 쓴다. 고로 그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삶도, 영도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된다.

9. 어떤 사람은 <시대 주의 말씀>을 듣고, 육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을 위해서 각종으로 쓴다. 고로 그 육도 영도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새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된다.

10. 자기 근성, 자기중심을 가지고 있는 채로 <시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자기 근성'을 따라 써지고, 그 말씀을 '자기중심'으로 소화하고 실천하여 육도 영도 그쪽으로 변한다.

11. <자기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비우지 않고,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가면, 이것과 저것이 섞여서 같이 행하게 된다. 고로 육도 영도 온전하게 거듭날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다.

12. 늘 쳐다봐야 기억난다. 늘 생각해야 기억난다. (조금 전에 그 사람을 봤어도 그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니,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13. 자꾸 생각하면서 생각을 쓸수록 기억 신경이 발달되어 잘 기억나게 된다.

14. 영적으로 들어가면, 더 잘 기억난다. 영의 단계, 혼의 단계에서 기억하기 때문이다.

15. 같은 음식이라도 <짐승>이 먹으면 '짐승의 살'이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살'이 된다.

16. 같은 말씀이라도 <의인>이 들으면 의롭게 행하여 '의의 살'이 되고, <악인>이 들으면 '악'으로 쓰게 된다.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저마다 '해야 될 일'을 못 하여, 매일 '죄'를 짓게 된다.
2. 저마다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3. 하루에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다. 놀지 말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라. 한 가지도 안 하고 놀면,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
4. 이성 죄, 도둑질 죄, 미워하는 죄, 혈기 죄, 말로 싸우며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죄,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 등 이 같은 죄를 안 짓더라도 <자기를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위해, 많은 생명들과 섭리사를 위해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으면 '무지의 죄, 게으른 죄, 손해 가게 하는 죄들'을 짓게 된다.
5. <삼위의 주권관>을 벗어나서 생각하지 말고 <그 주권관 안>에서 자꾸 생각하고 대화하고 간구하여라. 그래야 '할 일'이 생긴다.
6. 기도는 눈 감고서만 하지 않는다. 눈을 뜨고도 항상 수시로 무시로 '마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다.
7. 새벽기도를 길게 못 하면, 생활 속에서 수시로 기도해라. 눈을 안 감고서도 마음으로 하면 된다. 생활하다가 만물로나 사람으로나 깨닫게 되면, 즉시 깨달았다고 애인에게 이야기하듯 삼위께 이야기해라. 삼위가 깨닫게 해 주셨는지, 자기 스스로 깨달으려 하다가 깨달았는지 물어보기도 해라. 대화는 자꾸 '신령한 영적 대화'로 만들면서 해라.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그때마다 필요하거나 그때마다 할 말이 있으면 마음으로 삼위를 부르면서 대화하는 것이다. 삼위는 항상 개방되어 있다.
8.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휴거 차원, 삶의 차원'이 모두 나아지고 좋아진다.
9. 실천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삼위께 구상을 받고 실천하기다.
10.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무기력하게 돼 버린다.
11. 실천하지 않으면 자극이 없고, 느낌도 없고, 사는 맛도 없게 된다.
12. <실천의 때>는 '순간'이다.
13. 평소에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시간 낭비하다가 짧은 시간에 빛같이 실천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 평소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때 그 순간마다 빛같이 실천하는 자가 여유 있게 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 성공하고 승리할 자다.
14. 실천할 때, 삼위가 더욱 함께하며 역사하신다.
15. 실천해서 깨달은 잠언이나 말씀이 있고, 깨달아서 아는 말씀이 있다. 다 다르다.
16. 간혀 있어도 민족과 세계로 넓게 실천하면서 얻는다. <실천자>에게 '주의 생각'을 주어서 시키고, <그 사람>이 '주의 영광'과 행하여 얻는다.
17. <실천>을 '힘들게 생각'하면, <실천>이 '무거운 짐'이 된다.
18. <실천>해야 '짐'을 벗어 버린다.
19.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영적으로 실천'하면, 보통 생각과 달라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
20. 세상 발에 감춰진 보화도 <생각>으로 지구 세상 이곳저곳을 다니며 찾았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그것이 실제

로 있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

21. <생각>을 안 하면 <육>이 아예 실천하지 않게 된다.

22. <생각>에서 시인해야 <육신>도 실제로 실천하면서 찾는다.

23. 한 청년이 올해는 ‘달띠의 해’니까, 월명동에도 분명히 ‘달 형상의 돌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찾으러 갔다. 이 산, 저 산, 이 바위, 저 바위 다 돌아다니며 찾았다. 그러다 동그래산 정자를 넘어 양달에서 ‘달 형상이 있는 돌’을 찾았다고,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왔다. 정말 ‘달 형상 바위’였다. 선생이 어렸을 때 그 밑에서 기도하던 바위였다. (사진 -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보여 줄 것)

24. 있다고 믿어야 찾게 된다.

25. <성자바위>도 또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

26. 선생이 한 바위에서 ‘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서 보냈는데도, 본인은 못 찾고 있다. 개성으로 세계 왕 살아 먹은 자의 얼굴이다. 성자는 1978년도에 그 사람을 TV에서 보게 하면서, “<이 센터 세계의 왕>이 바뀌듯, 이 해부터 <세계 종교의 왕>도 바뀌게 되리라.” 하셨다.

27. <내적 영적 종교 역사의 지도자>가 바뀔 때, <외적 육적 세상 지도자>도 같이 바뀐다.

28. 먼저는 ‘육 있는 자’가 바뀌고, 그다음에 ‘신령한 자’가 바뀐다.

29. 개인도 먼저는 ‘육의 생각과 행위’가 바뀌고, 그다음에 ‘영’이 바뀐다.

30. 항상 ‘내외 양쪽’ 같이 바뀐다. 그리함으로 ‘절대적인 사실’임이 입증된다.

31. 밤에서 낮으로 바뀌면 모두 낮으로 바뀌듯이, 세상도 <시대>가 바뀌면 ‘종교 시대’도 바뀐다.

32. <종교 시대>가 바뀌면, <세상 육적 세계 지도자>도 바뀐다. 이는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단 종교는 하나님이 하나씩 심판해 나가신다.

33. <진짜>가 오면, 그 ‘보낸 자’가 ‘전능자’께 ‘시대의 상황’을 알린다. 이렇게 ‘땅’에서 푸니,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풀어 헤치며 숨은 것이 드러나게 하시며 심판하신다.

34. 30년 전에는 한국에 이단 교파가 30개쯤 되었다. <보낸 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심판하여 거의 다 없어졌다. 이단 족속은 결국 다 심판받고 없어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낸 자>가 심판 대상을 올리니, <전능자 하나님>이 심판하여 없어지게 하셨다.

35. 2016년에도 ‘거짓된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

36. <세상의 참빛>이 오니, <어둠>은 점점 사라졌다.

37. <새벽별>이 뜨니, <잔별들>은 점점 빛을 잃었다.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씻고, 닦고, 먹고, 자기 때문에 ‘생활 운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생활 운영’이 안 된다. 신앙도 ‘할 일’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된다.

2.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쪽 건강이 운영’ 되는 것이다. 안 하면 ‘운동으로 인한 건강 운영’은 안 된다.
3. <신앙생활>도 ‘할 일’을 안 하면, ‘그로 인해 운영될 것’이 운영되지 않는다.
4.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통해 운영될 신앙’이 운영되지 않는다.
5. 개업은 멋있게 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운영이 안 되어 문을 닫는 가게가 수만 군데씩 된다. 이와 같이 <신앙>도 ‘시작’은 멋있게 하는데 최대로 안 하니 ‘운영’이 안 되어 실망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다.
6. 전도하여 생명들을 멋있게 기르겠다고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하여 ‘운영’이 안 되고 실망으로 끝나는 자들이 많다.
7. 경영하고 운영하려면 지혜자, 지식자, 경험자의 말도 들어 보면서, 자기도 최대로 해야 된다.
8. 자기가 자기 신앙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원하고 희망한 대로 안 되고, 또 알아도 게을러서 못 하고, 열심히 안 해서 잘 안 되는 것이다. 장사도 사업도 ‘운영’이 안 되면 희망이 없고 힘이 없듯이, <신앙>도 ‘운영’이 안 되면 재미도 희망도 기쁨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9. 운영이 안 되면 해도 적자가 난다.
10. 주를 머리로 삼고 하지 않으면 <삼위와 주의 주권권 세계>는 운영도 경영도 안 된다. 주의 생각을 받아서 그 뜻대로 해야 잘된다.
11.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기 전에는 대희망으로 잘하겠다고 시작했으나, 오히려 ‘교인들 개인 신앙 운영’이 안 되니 교회 적자, 생명 적자, 재정 적자, 신령한 것의 적자, 은혜의 적자, 말씀의 적자가 생기기도 한다.
12. 교회 모두가 함께 해야 교회가 잘 운영된다.
13. 자세히 알고 일을 맡겨 같이 행하고, 주를 머리로 삼고 주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야 교회가 잘 운영된다.
14. 잘 안 된다고 그나마도 안 하면, 아예 운영이 안 된다.
15. 하는 대로 운영된다.
16. 실천하지 않는데, 운영되는 것은 없다.
17. 현상 유지만 하는 운영, 적자 운영, 조금 잘되는 운영, 아주 잘되는 흑자 운영이 있다. 하나님과 주는 그때마다 보고 운영이 잘 안 되면, 늘 ‘잘하는 운영자, 경영자’를 찾아서 세운다.
18.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하루를 운영해도 처음부터 새벽부터 잘해야 하루 종일 시간이 모자라지 않고 할 일을 하여 잘 운영된다.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 자>만 ‘그 날의 운영을 잘한 자’가 된다.
19. 매일 ‘자기 인생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는지 보아라.
20. 가게 운영이 안 되면 잘되다가도 문을 닫듯, 신앙도 휴거도 그러하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하고, 이혼으로 문 닫는 격과 같다.
21. 가게나 회사를 만들어서 주며 운영하도록 맡겼는데, 운영을 못 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기술 부족, 열심 부족, 노

력 부족이다.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잘됐었다.

22. 새벽에 한 꿈을 꿔는데 - <제시간에 하는 자>에게는 그 몫을 그 사람에게 보내 주었고, <늦게 하는 자>에게는 본인만 먼 곳까지 직접 와서 자기 몫을 가지고 가게 하는 장면이었다. 새벽에 각자의 신앙이 이같이 운영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23. 제시간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여 제시간에 하나님과 성령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자기 실력으로 차원 높이 올라가서 받아 와야 되니 시간은 다 가고 시간에 쫓기게 된다.

24.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교회에 안 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며 약아빠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다. 특히 가정국 중에 많다. 그럼 하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합리화하며 약게 대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물질도 주시고, 영의 세계의 것도 주신다.

25. 행한 만큼만 운영이 된다.

26. 행할 것을 진정 행함으로 운영이 잘되어 삼위께 받은 것이 있어야 기뻐하게 되고, 희망으로 하게 되고, 힘이 생긴다.

27. <1년 동안 자기가 행한 것>은 '연말'에 행위대로 받는다.

28. 특별히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왜일까? 행하지 않아서다. 운영을 안 해서다.

29. 받은 자만 무엇을 받았는지 안다.

30. 아무도 안 가 본 장소에 가 본 자만 알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사는 자만 안다.

31.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절대적 세계'다. 어느 정도 가르쳐 줄 수는 있으나, 다 못 가르친다. 그 차원에 가서 사는 자만 얻고 산다.

32. 부자가 되어 사는 자가 자기가 먹고 누리며 사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 삶을 다 느끼겠느냐. 자기도 부자가 되어 그만큼 먹고 살아야 느낀다. 음식의 맛도, 기쁨도, 삶도 '말'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아는 것이고, <살>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다.

33. 영의 세계도, 천국도 가 본 자들이 말을 해 준다. 그러면 그 계시를 듣고 절대 믿고 은혜를 받아야 자기도 그 차원으로 가게 되고, 혹은 자기가 혼이나 영으로 직접 가 봐야 제대로 알게 된다.

34. <실천자>만 '말한 곳, 아는 곳'에 간다.

<2017년 1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35. <이론>은 '지식'이다. '아는 단계'다.

36. 시장의 물건이 좋다는 것을 배워서 알기만 하고, 실제로 먹고 사고 얻지 않으면 '지식'에서 끝난다.

37. 음식 냄새만 맡고는 못 산다.

38. 음식 냄새만 맡으면, 희망에 차고 기뻐하기는 한다. 그러나 취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난다.

39. 희망에 차서 기뻐하기만 하면 못 산다. 이는 희망을 이론 후의 기쁨과는 다르다.

40. 기성을 보아라. 주가 오신다며, 희망과 기쁨이 차고 넘쳤다.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 주관권에서 살다가 그 주관권의 구원으로 끝났다.

41. 하나님이 이 시대의 때가 되어 행할 자를 보내어, 그 <보낸 자>를 맞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은 ‘삼위가 말씀하신 뜻’을 이루고,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얻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 <땅>에서도 ‘성경에 예언된 새 역사’를 펴니 ‘새 땅’이고,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을 차지했으니 ‘새 하늘’이다. <얻으려 희망으로 기뻐하는 것>과 <얻고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딴 세상이다.

42. <얻으려 희망으로 기뻐하는 자>와 <희망을 이루고 얻고 기뻐하는 자> 중 어떤 자의 기쁨이 더 크겠느냐.

43. 지혜 없는 자는 ‘얻으려 희망으로 기뻐하는 자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희망을 걸고 따라간다.

44. <얻은 자의 기쁨>은 ‘얻고자 희망으로 기뻐하는 자의 기쁨’보다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자세히 보아라.

45. <사랑하는 자를 찾고 사랑을 이루고 기뻐하는 자의 기쁨>과 <사랑하는 자를 찾으려고 희망에 차서 기뻐하는 자의 기쁨>은 다르다. 자세히 섬세히 보아라.

46. <먹을 것을 찾고 먹는 희망을 이루고 기뻐하는 자>와 <희망에 차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자>는 기쁨도 생각도 행위도 다르다. 가다 보면, ‘못 먹은 자’는 힘이 없어서 희망도 기쁨도 꽃같이 시들어 버린다.

47. 지혜자는 온전히 판단한다.

48. 올해도 주 안에서 실천함으로 ‘희망을 이루고 얻는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49. 주와 실천자만 얻는다.

50. <희망하던 것을 얻은 자>는 ‘진정한 내적인 기쁨’을 느끼지만, <아직 얻지 못한 자>는 ‘외적’으로만 기뻐한다.

51. <사랑하는 자를 얻은 자>는 ‘온몸’으로 기쁨을 느끼고, <얻지 못한 자>는 ‘외적’으로만 기쁨을 느낀다.

52.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 기다리던 자를 얻은 자>는 그로 인해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이 폭발되어 누리고, <아직 얻지 못한 자>는 ‘자기에게서 풍기는 기쁨’만 누린다.

53. <얻은 자>는 ‘자기에게서 오는 기쁨’은 식거나 사라져도 ‘얻은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으니, 기쁨이 꺼지지 않는다. <얻지 못한 자>는 ‘자기에게서 오는 기쁨’이 꺼지면, 그대로 ‘마음의 기쁨의 등불’도 꺼지게 된다.

54. <기다린 주를 만나고 얻은 자>는 ‘그로 인해 오는 기쁨’만 누릴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땅에서 육으로도, 하늘에서 영으로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시대 뜻’을 이루고 간다. 그로 인해 성경에 예언된 대로 <땅>에서도 ‘새 땅’을 얻게 되고, <하늘>에서도 ‘새 하늘’을 얻어 기쁨이 차고 넘치며 살게 된다.

55. <결혼한 자>는 자녀를 낳고 후대를 얻고 기뻐하며 살듯이, <하늘에서 보낸 주를 맞은 자들>은 시대 복음으로 시대 새로운 생명들과 후대들을 낳아서 얻고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56. <시대 주를 맞지 못한 자들>은 구시대에서 희망만 품고 산다. 마치 <결혼 안 한 자>가 ‘앞으로 사랑하는 자를 맞아 결혼하면, 아기 낳고 새 집 짓고 살아야지...’ 하며 희망만 품고 살듯 한다.

57. 현실 세계를 보아라. <시대 주를 맞은 자와 얻은 자들>은 계속해서 시대 복음으로 새 생명들을 낳고 가지만, <구 시대인들>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홀로 있는 것같이 사랑하는 자를 얻기 위해 희망으로만 산다. 그나마 늙어서 인생의

해가 지고 있다.

58. <시대 주를 맞고 얻은 자들>은 ‘새로운 땅’에서 주와 함께 부지런히 행하여 ‘새 하늘의 영원한 황금성 천국’을 얻고 누리라.

59. <그 시대 보화>는 ‘하나’인데, <얻은 자>만 그 보화를 가지고 희망을 이루며 산다. 다른 자들은 ‘그 하나의 보화’를 얻지 못하고, 희망으로 찾으려 다닌다. <얻은 자>가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보화를 찾기 위해 희망으로 사는 기쁨’을 부러워하겠느냐. 그들을 따라가겠느냐. 이 시대 보낸 자 앞에서도 그러하니라.

60. <기다리던 자를 만난 자들>은 오히려 ‘만나지 못한 자들’보다 조용하다. 내적으로 진실로 기뻐하기 때문이고, 기다리던 자를 만났으니 긴장하면서 할 일을 하기 때문이다.

61. <결혼하기 전>에는 소문도 나고 떠들썩하다. <결혼한 후>에는 오히려 조용하다. <이 시대 주를 맞은 자들>도 그러하다.

62. <찾던 것을 찾은 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동료가 어디 갔느냐고 하며 찾으니, 모사를 꾸며 “아직 못 찾아서 머리가 아파서 땀 일 한다.” 했다. 이에 동료가 “내가 곧 찾을 것만 같으니, 나의 희망과 기쁨에 참여하자. 이리로 와라.” 했다. 그런다고 찾은 자가 거기로 가겠느냐. 이미 ‘찾던 것’을 찾았으니,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 이 시대도 ‘기다리던 주를 찾고 만난 자들’은 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주와 함께 정신없이 행한다.

63. 선생이 어렸을 때다. 나와 함께 매일 희망으로 나무를 하러 산에 가던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그렇게도 나무를 하러 가자고 소리를 질러도 안 나오고 “오늘은 안 가.” 했다. 다음 날 또 부르니 “오늘도 안 가.” 하고, 다음 날에는 대답도 없었다. 알고 보니, 결혼하여 사랑하는 자를 맞아 서로 들어붙어서 나무고 뭐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그 청년은 평소에 몇 달 동안 그렇게도 나무를 해다 날랐다. 결혼하면 사랑하는 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하니, 오랫동안 나무를 안 해도 되게 기쁨에 차서 미리 나무를 해다 나른 것이다. 나무를 하러 가면, 도무지 그 청년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 힘은 <약혼한 사람이 가진 결혼할 희망에서 오는 힘>이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그 후 이 청년이 다시 나무를 하러 나왔는데, 더 날면서 열심히 했다.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사랑하는 자를 맞은 힘>이었다. 나무를 해도, 좋은 나무를 골라 가면서 했다. 알고 보니, 자기 사랑하는 자가 볼 때기 좋게 좋은 나무를 골랐던 것이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지금은 그 남자가 무엇을 하는지 소식이 없다. <육에 속한 일>이라서, 육신이 늙으니 끝난 것 같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하늘에 속한 희망>은 늙어도 쌓이고 얻어지니 ‘영원한 희망’이다. 그로 인해 ‘육의 희망’도 평생 간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64. <얻은 자의 기쁨과 보람>은 ‘얻은 것’과 함께 누리니, ‘얻지 못했을 때의 기쁨보다 10배, 100배 더 크다. <육>으로 그런 정도이고, <영>으로는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국문학으로도 표현이 안 된다. 한 마디로 ‘영원’하다.

65. <만사의 모든 것들>은 일하듯이 수고하고 행하여 얻고 받는다.

66. <잠언>도 일하듯이, 자연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얻듯이, 한 잠언, 한 잠언 생각하면서 깊이깊이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성령이 주실 때마다 얻고 쓴다.

67. <잠언>도 하루 종일 쓰면 ‘종일 것’을 얻지만, 그렇게 하면 힘들어서 못 한다. 또 다른 일도 해야 하니, 못 한다. <잠언 받기>는 마치 ‘절벽을 오르는 것’ 같다.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교통경찰들>에게는 ‘교통 법규를 지키는 차들’은 눈에 잘 안 보이고, ‘교통 법규를 어기거나 사고 난 차들’이 특히 눈에 잘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중시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잘 보이고, 귀에 잘 들리고, 잘 말하게 된다.

2. 멀리 있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들린다.
3. 가까이 있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나, 눈에 보여도 슬쩍 스쳐 보이고, 귀에 스쳐 들린다.
4. 가깝거나 멀거나 거리에 상관없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깝게, 혹은 멀게 기억하면서 그것과 일체 된다.
5.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기억날 때까지 일주일, 한 달, 1년도 가고, 어떤 것은 수년, 수십 년씩 가 버린다.
6. 눈에 보이면 생각나고, 귀에 들리면 생각나고 기억난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생각’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생각나고 기억하게 된다.
7.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스스로 기억하기 어려우니, 늘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래야 ‘중한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그것과 가까운 것을 행할 때 그것이 기억나게 되기도 한다.
8. 항상 생각났을 때 행해라. 그리고 생각났을 때 기록해라. 기록한 것을 늘 눈에 보이게 하여, 때 되면 행하게 해라.
9. 인간의 뇌는 신의 머리가 아니다. 고로 저마다 뇌에 기억할 것을 각종으로 생각하며 뇌를 써야 된다.
10. <생각의 싸움>이다.
11. <생각>해야 <몸>도 실천하게 된다.
12. <기도>하면, 생각나고 기억난다.
13. <기도>하면, 절대자 하나님이 ‘생각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14. <활동>하고 <실천>해야 ‘뇌의 생각’이 잘 작동된다.
15. <활동하는 자>가 ‘생각의 활동’도 잘하고 ‘기억’도 잘한다.
16. <실천하는 쪽>으로 생각나고 기억난다.
17. 인간의 자체 생각은 그 주관권 안에서 한계가 있다.
18. 인간의 생각을 넘어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일체 되어 거기에 속한 생각을 하면, ‘인간의 생각보다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된다.
19.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그 주관권의 생각에 처해 행하게 된다.
20. 무엇을 어떻게 행할까? 먼저 절대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전능자에게 간구하며 물어보아라. 그리고 그 보낸 구원자에게 물어보아라.
21. 사람들은 누구를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산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길을 아는 자>에게 물어보면 ‘길’을 알려 주듯, <하나님>께 간구하고 물으면 ‘인생길’을 알려 주신다.
22. 인간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처한 대로 사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살면서, 영원히 존재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
23. 전능자 하나님은 절대신이다. <신>은 ‘육신’과 잘 안 통한다. 고로 ‘절대적으로 전능자를 생각하게 하는 자’를

만들고, 그를 가르쳐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다. 그는 ‘육’이니, 이 세상의 인생들과 잘 통한다. 고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생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생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
- ‘그’를 찾아 행하여라!

24. <물건 사러 다니는 자>를 만나야 ‘자기 물건’을 팔게 되듯이, <구원자>를 찾아야 ‘자기를 구원’하게 된다.

25. <물건 팔러 다니는 자>를 만나야 ‘자기가 원하던 것’을 사게 되듯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자, 영원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의 인생길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인도’하며 ‘말씀’해 주신다.

26.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유익만을 위해 남의 것을 갈취하는 자들, 사기꾼’도 있듯이, 종교를 빙자하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인생들을 인도하며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닌데, 자기 유익과 명예를 위해 행하는 자들이다. 비원리와 비진리로 유혹하여 육의 세계에서 끝나게 한다.

27.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참역사>는 ‘하나’다. 나머지는 그 하나를 따라야 할 방계 역사다.

28. 이단은 성경 전체를 못 본다. 성경의 여러 곳을 풀면 자기들과 안 맞는다. 고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가르치며 맞다고 주장한다.

29. 때가 되면 하나님은 보낸 구원자와 함께 ‘이단’을 심판하여 멸하신다.

30. 이단,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도 <심판>이다.

31. 이단,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어 모두 알게 하는 것’도 <심판>이다.

32.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수천만 마리의 오리나 닭이 매몰되어 죽듯이, ‘신앙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것을 가르친 자들의 죄’와 ‘부패된 정치인들의 죄’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병들어 매몰되듯 한다. 그 병이 ‘온전한 자들’에게까지 번지니,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33. <만물들>을 통해 ‘그 시대’와 ‘그에 해당되는 주관권’을 향해 계시하신다.

34. 이단들은 비원리, 비진리로 행하니 존재를 못 한다. 결국 병든 오리나 닭같이 된다.

35.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행한 대로 스스로도 받고, 하나님도 그에 따라 대해 주고 실행하신다.

36. 사람이 병들면 스스로 존재를 못 하듯, 종교도 비진리로 병들면 한계가 와서 생각도, 행위도, 영도 병이 들어서 스스로 존재를 못 한다.

37. 비원리, 비진리의 말을 듣고 행하며 산 자들은 - 마치 병들고 쓰러진 오리들과 닭들이 어느 한 날에 매몰되듯, 그 육들도 영들도 사망권에 묻힌다.

38. 절대적으로 온전히 해야만, 절대적으로 온전히 존재한다.

39. 절대적으로 해야 절대적으로 존재하듯,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야만 ‘절대적으로 존재’한다.

40.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생각을 중시하며 사는 자들>은 ‘시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41. <행위>에 따라서 ‘형체’를 만드는 것이다. <행위>에 따라서 ‘육의 삶’의 형체’도 만들고, ‘영의 형체’도 만들고, ‘존재물의 형체’도 만든다.

42. 만들면, ‘딴 세상 존재물’이 된다.

43.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만들면, 그 <행위>에 따라서 ‘집’이 되어 거기 살게 된다.

44. 사람도 <자기 생각과 행위>로 ‘자기 육의 삶’을 만들고, 그로 인해 ‘자기 영의 형체’도 만들고, ‘자기 영이 거할 처소’도 만든다. - 오직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 그래야 <온전한 육의 삶>이 만들어져 <영>이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된다.

45. 인생, 저마다 ‘자기 행위와 삶으로 만들기’에 따라 이상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돌바닥을 힘들게 정으로 찍어서 깨 없애려 하지 말고 쉽게 흙으로 채우고 덮듯, 생활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좋은 생각과 사고, 감사와 믿음과 사랑’으로 뒤덮고 살아라.

2. 길을 닦을 때 돌을 다 깨서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흙을 채워서 쉽고 편하게 해결하듯이, 생활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다. - <믿음>으로 뒤덮고, <사랑>으로 뒤덮고, <감사>로 뒤덮어야 될 때가 많다.

3. 기도한다고 해서 100가지 일 모두 100% 해결할 수는 없다. 다 해결돼도 ‘그중의 한 가지’가 안 될 때가 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도해서 잘된 것’까지 다 부인하며, 하나님의 마음 거스르게 하지 말아라.

4. 어느 때는 ‘큰일’은 잘됐는데, ‘그보다 10분의 1, 2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일’이 이상하게 기도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 그것 때문에 ‘큰일’까지 연결해서 속상해할 것 없다. 안 되면 기념으로 남겨 놓거나, 더 시간이 지나면 하면 된다.

5. 생활하다 문제 처리를 하다 보면 ‘큰 것’은 잘됐는데, 기분 나쁘고 심정 상하게 ‘작은 것’이 안 될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이럴 때가 있다.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다. 교훈으로 삼기도 하지만, 대개 스스로 시험에 들게 된다. 시험에 들지 말아라. 또 하면 된다.

6. 엘리야 선지자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고 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을 기른 ‘아합 왕의 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하니 광야로 도망쳤다. 그리고 낙심하며 자포자기했다. <큰불>은 겼는데 <잔불>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큰일>은 잘해도 <작은 일>은 못 해서 울상 짓는 자들도 있다. 이세벨이 쫓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별통의 꿀을 다 빼 버리니, 벌이 성질나서 쫓아오기 마련이다. 벌집에 불을 질렀으면 됐건만, 엘리야는 승리 후에 자포자기했다.

7.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상의 지도자,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멸했다. 이에 그들을 키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순간 정신이 나가서 엘리야를 추격했다. 엘리야는 그렇다고 낙심하면서, “이제 죽어도 족합니다.” 하며 한숨 쉬며 말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멸하고 승리했으니, 우상을 섬기는 왕비 이세벨이 쫓아왔어도 지금까지 해 왔듯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간구하며 담대하게 하면 됐다. 하나님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거기에 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길러낸 이세벨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세벨의 행위는 모두 ‘우상의 행위’였다. 거짓 선지자 850명도 다 멸하셨는데, 가만히 두시겠느냐. 그러나 엘리야는 <큰일>을 해결하고 <그다음 일> 때문에 자포자기했다. 이는 마치 <자기 소원>을 이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실 가닥 같은 문제’로 자포자기한 것과 같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쉬어라. 엘리야를 세워 네 뒤를 이어 일하게 해라.” 하셨다.

8. 이를 교훈으로 삼고, 네 앞에 ‘이세벨 같은 일’이 생기면, 빛을 잡듯 빠르게 <기도>하고 <실천>하여라. 하나님이 다

보신다.

9. 사람이 <큰 승리> 후에 ‘그로 인해 오는 하찮은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은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자포자기한다.

10. <큰 미친개>가 자기를 물려고 하여 발로 걷어차고 싸워서 멀하고 나니, <그 미친개의 새끼>가 쫓아왔다. 이세벨 같은 일이다. 도망가도 쫓아온다. 도망가다가 절벽으로 가면 쫓아오다가 말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다.

11.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라.

12. <큰 승리>를 했으면, ‘그로 인해 오는 작은 문제’를 재미있게 대처해 나가라.

13. 얼굴 전체에 여드름이 짝 번져 있기에 기도해서 다 나았는데, 여드름 몇 개가 기도해도 안 낫고 약을 발라도 안 낫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가다 보면, 가뭇물에 물이 증발되듯 없어진다.

14.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큰 것’은 잘됐는데 ‘작은 것 하나’가 잘 안 된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라. 어떤 것은 그 하나를 가지고 더 깨닫게 해 주기 위함도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도 있다.

15. 병도 ‘큰 것’은 나았는데 ‘작은 것 하나’가 아무리 치료하고 기도해도 안 낫는다. 그것이 자포자기하게 만든다. <큰 것>이 나왔으니 기적으로 알고 더 감격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다.

16. <자기 모순>도 그러하다. 다 고쳤는데 ‘한 가지’가 안 고쳐져서 낙심하게 한다. ‘고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행해라.

17. <교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했는데 ‘작은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고 있느냐. 큰 문제를 해결했으니, 모두 감격, 감사해라.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하듯, 또 하면 된다.

18. 인생에 있어서 ‘큰일’은 100% 해결됐는데 ‘몇 가지’가 잘 안 돼서 애탈 때가 있다. 그것마저 담대히 해라. 지혜롭게 해라.

19. 큰 환난도 다 이겼는데 또 환난이 오면 “또 환난이 있어?” 하며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한다.

20. 오늘, 왜 이런 잠언을 받아서 주겠느냐. 주도 다 겪고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한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일을 당한다. 우상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과 함께 멸하듯 ‘큰일’은 잘했는데, ‘미치광이 이세벨 같은 일’이 생길 때가 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모두 드러난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쫓아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세벨이 자기 권력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길렀구나. 그들을 죽이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오는구나. 그들처럼 이세벨도 멸하자.’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멸할 기회였다. 결국 그의 남편 아합 왕도, 이세벨도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됐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하셨다.

21. 어느 시대든지 이세벨같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거짓된 자들을 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치고 심판하신다.

22. <큰 승리>를 했는데 ‘작은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인류 최고의 승리’를 했다. ‘휴거’됐다! 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담대히 행하면 된다.

<2017년 1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못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 뛰고 달릴 수 있는 여건을 줬는데도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해서 못 하는

자가 있고, 여건을 안 줘서 할 수 있는데도 못 하는 자가 있다.

2. 지도자로 세워 졌는데 자기 성격 때문에 형제들과 부딪혀서, 사명을 못 맡기는 자도 있다.

3. 진실로 인자함과 선함이 있어야 된다.

4. 자기를 만들어라. 하나님과 주가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라.

5.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쓸 데가 많다.

6. 자기 식으로 하는 지도자는 합당치 않다.

7. 항상 ‘주의 방법’으로 해야 주가 귀히 쓴다.

8.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좋은 세월 다 간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9. 하루라도 ‘최고의 기준과 목적’을 세워 놓고 열심히 살아 보아라. 하면서, 그 터전 위에서 계속해라.

10. 사람은 <최고>로 살 수도 있고, <중간 처지>로 살 수도 있고, <최하>로 살 수도 있다. 결과는 각각 완전히 다른 세계다.

11. 최고의 하나님과 주다. ‘최고로 사는 자’만 하나님과 주와 함께 최고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12. <최고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최고의 희망’이 이루어지고, ‘더 이상 없는 최고의 보람’을 얻고 산다.

13. <실천하는 삶>이 ‘보화를 얻는 삶’이다.

14. 무엇을 할까 걱정하느냐. 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고의 실천’을 하며 살아라.

15. 100m 경주를 하듯이, 건지 말고 뛰어라. <뛰는 삶을 사는 자>는 더 뛰고, ‘최고로 뛰는 삶’이 어떤지 알고 뛴다. 고로 그 면에서 1등이나 2등, 3등을 하게 된다. <2017년의 꿈>은 꿈을 두고, 목적을 두고, 마치 경주하듯 최고로 뛰면서 실천하기다. 겨루어 이기면, 승리자가 되어 다 얻는다.

16. 매일 뛰어 승리하면 그 날의 것을 최고로 얻고, 그 주의 것을 최고로 얻고, 그 달의 것을 최고로 얻고, 그 해의 것을 최고로 얻는다.

17. 편지를 보면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 가끔 특별한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최고로 뛰는 자만 보낸다.

18. 새 역사는 무한하다. ‘할 것’도 많고 ‘줄 것’도 많다.

19. <말씀>도 최고 차원으로 최고로 많이 주니, 최고로 실천해라.

20. 성공하면 결국 둘이 생명권에 남고, 실패하면 혼자 사망권에 남는다.

21.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결국 너와 나 둘이 남는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결국 이것저것 다 사라진다. 나와 일체 되어 산 자들만 그와 나 둘이 남는다.” 하셨다.

<2017년 1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상대’가 좌우된다.
2.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상대에 속하는 것이나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선’으로 평가되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속하지 않으면, 상대에 속한 것이나 사람도 ‘불의’로 평가된다.
3. 물이 <정수된 상수도>를 통해서 가면 ‘깨끗한 물’이 되고, <하수도>를 통해서 가면 어떤 물이든지 ‘더러운 물’이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어떤 자를 통해 하늘 앞에 나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된다.
4.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만지면 정화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만지면 더러워진다.
5.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되고, 깨끗하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되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
6. <하나님께 속한 큰 자>라도 ‘작은 자’와 같이 살면, 소원을 이룬다 해도 ‘큰 희망’은 이루며 살지 못한다.
7. 호랑이가 토끼를 힘들게 쫓아다니다가 잡아서 토끼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어 산다 해도 호랑이와 토끼는 ‘생각과 뜻’이 안 맞아서 만족하지 못한다. 행여 토끼가 호랑이를 사랑한다 해도 큰 호랑이에게는 만족이 없고, 토끼가 담대하다 해도 호랑이 성에는 안 찬다.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두고 사는 호랑이 같은 존재, 만물의 영장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만족하지, 사람을 신같이 믿고 살거나,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사랑이나, 이성 사랑이나 목적하고 살면 호랑이가 토끼를 사랑하며 희망에 차서 사는 격과 같다. 호랑이가 ‘자기보다 더 큰 존재인 사람’만 사랑해도 그리도 좋아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다. 인간도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영원하신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살아야 만족하고 이상적인 삶이 된다.
8.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삶에서는 만족이 적다. 이는 수영 선수가 작은 웅덩이에서 자기 특기를 펴며 노는 격이다.
9. 사람이 어렸을 때는 ‘생각의 차원’이 낮다. 고로 어렸을 때 대(大)소망으로 생각하며 선택한 것들은 ‘지극히 욕에 속한 것’이며 ‘작은 것’이다. 그것으로 그 소망을 이뤄도 만족이 없다.
10. 뇌 성장, 생각 성장, 행실 성장, 몸 성장이 안 됐을 때 선택한 것은 그 목적을 이루려고 질주하여 그것을 얻었어도 희망이 점점 작아진다. 자기가 크고 성장하면, 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1. 과일도 ‘나무에 매달려 작은 열매로 클 때 그중의 제일 예쁘고 최고로 큰 것’을 선택했어도 ‘열매가 다 큰 후에 제일 작은 것을 택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작다. 자기를 성장시켜 ‘생각’도 크게 하고 ‘몸’도 커서 힘이 있어야, 자기가 큰 만큼 상대적인 물질도, 환경도, 사람도, 세상의 것도, 종교도 제대로 선택한다.
12. 왜 저 같은 자가 종교는 ‘샤머니즘’을 택하여 믿고 사느냐. 왜 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우상’을 믿고 섬기고 절하며 사랑하며 사느냐. <생각>이 어려서다.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다. <앞날에 받는 영혼의 고통>을 몰라서다. <현재 욕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을 몰라서다.
13. <작은 자>도 ‘큰 자에게 연결’되고 ‘큰 자와 하나’ 되면, ‘큰 자’가 되듯이, <인간>이 ‘전능자에게 연결’되고 ‘전능자와 하나’ 되면 ‘크고도 큰 자’가 된다. 그 크기는 ‘영원한 크기’가 되어 절대자와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
14. 우상과 이단과 허황되고 거짓된 자들을 섬기고 좋아하는 자들은 누려도, 먹어도, 취해도, 보람 있게 살며 만족하다 해도 - 결국 <욕>은 ‘허무’로 끝나고 <영>은 ‘영원한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세계’로 가야 된다.
15. 절대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인생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고 온전하게 살도록,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영원한 뜻을 펴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만나 ‘하나님이 목적하신 삶’을 살아야 매일매일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16. 선생이 처음 ‘돌 예술을 배우고 돌에 눈을 떴을 때’는 <작은 돌>을 가져다 마당 감나무 밑에 하나둘씩 세우곤 했다. 그러다 보니 10개나 되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 세운 돌들이 모두 ‘수석’이었다. 아버지는 그중의 한 돌을 보고 “저것은 거북이같이 생겼다.” 하셨다. 선생이 밭에 일하러 갔다가, 형상을 보고 주워 온 돌이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 ‘형상이 특이한 돌들’을 보면, 주워다 집에 모아 두었다. 그러다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는 장비들을 가져다 ‘큰 돌들’을 쌓게 되었고, ‘형상 있는 돌들’을 자연성전에 갖다 놓게 되었다.

17. 어릴 때는 ‘작은 돌들’을 가져다가 즐거워하며 세우던 차원이었지만, 커서는 장비를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돌들’과 형상이 있는 돌들’을 세우고 쌓았다. 그제야 나도 만족하게 되었고, 보는 자들도 기뻐 만족하게 되었다.

18.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행하시며, 같이 기뻐하고 활동하며 뜻을 펴신다.

19.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차원’에서 ‘자기 취향’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20. <큰 자>라고 하는 자가 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사느냐. 그것에 맛을 들이고, 그것이 체질이 되니 뇌도 몸도 간이 맞아서다. 그럼 작아도 만족하고 살아간다.

21. <작은 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생각을 크게 하고 살면, 그 차원의 말씀을 듣고 크게 살게 된다. <구시대>는 ‘구시대 차원 낮은 말씀’을 듣고 사니 <어른>이라도 ‘그 주관, 그 차원, 그 체질’로 살고, <새 시대>는 ‘새 시대 차원 높은 말씀’을 듣고 사니 <어린 자>라도 마치 꽃에서 열매를 맺듯 더 높게 더 크게 살아간다. 어려도 ‘큰 역사’를 따르며 ‘큰 말씀’을 듣고 따라가니, ‘큰 역사의 사람’이 된 것이다.

22. <작은 자>라도 ‘전능자와 같이’ 해야 영원히 대(大)희망을 이룬다.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23.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좇아야 된다.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좇아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과거의 역사에서 희망하던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24. <육의 것>은 이뤄도 ‘육’이다. ‘육’으로 끝나 버린다. 육이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을 이뤄야 ‘육’도 ‘영’도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

25. <지혜자>는 ‘하나님’과 일체 되어, 일일이 겪어 보고 살아 보지 않고도 아예 차원 높이 올라간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알고 행하기 때문이다.

26. <육에 속한 자>는 일일이 다 살아 보고 확인하고 그제야 깨닫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간다.

27.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맛있고 이상적인 것을 먹고 살과 뼈로 삼으려고 시장과 거리로 나갔다. 각 음식점마다 둘러서 이것저것 먹어 보고 만족이 없으니, 그제야 다른 곳을 찾아간다. <아는 자>는 한 번에 맛있는 음식점으로 가서 먹고 누린다. 시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찾고 <그>를 알아야, 독수리가 높이 솟아오르듯 한 번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이상세계를 이루어 산다.

28.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자기 차원>은 ‘구시대 차원’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절대 목적을 이루며 행하신다.

29. 100년, 1000년이 가도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닌 것인데, 계속 확인하다가 인생 일생이 간다.

30. 시대가 악하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숨는다. 그리고 은밀히 ‘귓속말’로 역사를 펴 나간다.

31. <시대 주를 맞고 따르는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주>는 다른 길로 간다. 그래도 '사고'가 잘못됐으니 모른다. 모르고 가다가 '광야'를 만나고 '사막'을 만나고 '어둔 밤'이 오면, 그제야 몸부림친다. 그러나 그곳은 <주>가 있는 곳과는 너무나도 멀다. 사막 3백 리, 광야 4백 리 길이다. 그 길을 다 걸어서 '주가 있는 곳'으로 걸어온다 해도 인생이 다 늙으니, <주>는 그가 돌아온다 해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자'와 역사를 펴고 간다.
32.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얼마나 오랫동안 만족하겠느냐. '육에 속한 것'이고, '전능자와 함께 이루지 않은 것'이라면, 소원을 이뤘어도 '그때, 한순간, 그 주관권'에서만 누리다가 하루 해가 지듯 사라져 버린다.
33. <자기가 원하던 사랑>이 이루어졌어도 '육에만 속한 사랑, 전능자와 함께 이루지 않은 사랑'이라면, 역시 그 주관권에서만 순간 누리다가 하루 해가 지듯 사라진다.
34. <영원한 것>을 잡지 않으면, '과정의 역사'일 뿐이다. <과정>은 있으나 <결과>는 없다. 마치 과일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과정에서 끝나는 듯하다. 거기서 조금 더 가더라도 꽃을 가꾸듯 하니, 역시 끝나게 된다.
35. 과일나무를 심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열매'를 얻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의 세계>가 '인생들의 목적지'다. <육의 세계>는 '과정의 삶'이다.
36. <육의 것>도 '영원한 것'을 위해 쓰다 가면, '육의 것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최고로 쓴 자'가 된다. 고로 '결국 끝나는 허무한 것들을 영원히 존재하는 데 변화시켜 쓴 자'가 된다. 이는 마치 '봄에 녹아 없어질 눈'을 모아 팔아서 '집'을 산 격이고, '없어질 것'을 팔아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산 격이다. <육>은 '눈'과 같고 '결국 없어질 것'이다. <영>은 '집'과 같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7. <시간>도 그냥 두면 '눈'이 녹아 없어지듯 사라진다. 그 <시간>에 자기 손과 몸과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해 놓으면, '시간'은 흘러 녹아서 허무하게 없어졌어도 '그로 인해 남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상세계를 이루며 희망으로 산다.
38. <이상적으로 사는 삶>이 '네 앞'에 있다. 생각해야 찾는다.
39. 인생 삶의 길도, 자기가 섬길 존재자도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가도 그것으로 끝난다.
40. 소로 길은 소로 길로 끝나듯 인생길도, 자기가 섬길 자도 잘못 선택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된다.
41. 잘 선택하고 잘하기다.
42. 섭리역사에 살면서 제대로 안 하면서 잘 안 된다고 하며 자기중심으로 하다가는 망하고, 실패한다. 고생의 뚝단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 대(大)희망으로 가는 격이다. 그 삶은 '밤낮 파도가 밀려오는 세계'다.
43. 제대로 실천해라. 전능자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44.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 앞>에서는 '보통'으로 행하면서 <세상 육에 해당되는 작은 것>을 가지고는 '몸부림쳐' 행한다.
45. 저마다 '자기 차원'대로 놀아난다.
46. 하루살이는 아무리 잘 먹어서 건강해도 이틀밖에 못 산다. 일개 인생도 그러하다.
47.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며 트시는데, <자기>는 맞다고 하며 이끈다. 그 일을 자기가 끈다고 일이 되겠느냐. 이 시

대 이 민족이 그러하다.

48. <하나님이 보낸 자>도 틀렸다고 하나님께 보고하여 틀고 막고, 이에 <전능자>가 듣고 그 말이 맞으니 틀고 막으신다. 고로 그 운명이 묶이고 갇히게 된다. 영계를 보아라. ‘그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 그들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미래>는 ‘현재’를 보고 알게 된다. <영의 운명>은 ‘육의 삶, 육의 행위’를 보고 알게 된다.

49. <네가 원하는 것>이 크고 높아서 ‘오르고 또 올라야 되는 높은 산’과 같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높은 산’이 오히려 ‘고통’이 된다.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50. (성령) <핵심>을 숨기면, <전체>가 빛나게 된다.

51. 전구 속에 필라멘트를 숨겨 놓으니 전구가 빛나듯이, <하나님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도 숨기면 <전체>가 빛난다.

52. <월명동의 귀한 위치>를 숨기니, <월명동 전체>를 귀한 위치로 보고 귀히 대한다.

53. 과수원의 수천 주의 과일나무 중에서 <가장 좋고 귀한 품종의 나무>가 있는데, 주인이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최고로 아름답고 크고 맛있다고 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숨기면 “이 나무인가?”, “저 나무인가?” 하며 <과수원의 과일나무 전체>를 다 귀히 보고 대하니 <전체>가 빛난다. <가정에서도 최고로 큰 자>를 낳아서 크고 있는데 누구라고 밝히면 그 사람만 빛난다. 그 사람을 숨기면 <그 집의 자녀들>을 모두 다 크게 본다. 하나님도 처음에는 <보낸 자>를 숨기고 행하시지만, 때가 되면 모두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알게 된다.

54. <월명동의 초승달 터>도 수백 년의 전설이 흐르면서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니, <전체>를 귀히 보면서 대해 왔다. 그러다 결국 다 알게 됐다. 개발해 놓은 후에야 제대로 보이니, 그제야 하나님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어 찾게 되었다. 알고 보니, ‘어디 작은 한 자리’가 아니고 ‘전체’였다. 한국도 <초승달 터>가 있다 하여 찾으면 ‘그 지역 전체’를 보고 말하지, ‘한 지역의 작은 집터’나 ‘묘 터’가 아니다. 성경 말씀도 ‘한 좁은 터’를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민족과 세계’를 두고 말한 것이다. 고로 ‘좁게 보는 자’는 못 본다.

55.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아라. 축소해서도 보고, 확대해서도 보아라. 두 가지로 봐야 보인다. 성경의 <선악과> 하면, 작게도 크게도 봐야 된다. 그럼 풀린다. 작게 보면 ‘금단의 지체’이고, 크게 보면 ‘여자’다.

56.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여기서 <구름>도 작게 보면 ‘메시아를 낳은 여자’이고, 크게 보면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다.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 함은 ‘메시아는 <사람>으로 태어난다.’ 함이고, ‘메시아는 따르는 자들, 인구름을 타고 온다.’ 함이다. 하나님이 온다고 함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육신을 자신의 육으로 삼고 와서 그 뜻을 편다.’ 함이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흘렀어도 모르듯 앞으로 1000년이 더 가도 그 후손들이 모른다.

57. <모르는 자>에게 배우면 1000년을 배워도 모르고, <아는 자>에게 배우면 바로 안다.

58. <숨긴 것>은 모른다. ‘숨긴 것을 아는 자’가 밝혀야 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은 숨겨져 있으니, 모르는 자들은 캄캄하게 모르고 산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가르쳐 줘야 안다.

59. <아는 자>가 말했을 때 ‘불신’하면, <아는 자>는 말을 돌리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다. 고로 <모르는 자들>은 알 수가 없다.

60. <모르는 자>는 사탄이 쥐고, 계속해서 그 뇌에 ‘무지의 사고’를 넣어 준다.

61. (성령) <본 것, 아는 것>을 가지고 <안 본 것, 모르는 것>을 투시한다.
62. 하다 보면 ‘연결된 것’을 알게 된다. (지도자들은 꼭 알아야 된다. 사람을 다룰 때)
63. <육>을 보면, ‘그와 연결된 혼과 영’을 안다.
64. <한 가지>가 여자이면, ‘전체’가 여자라는 것을 안다. 이 시대도 그렇게 분별해라.
65. <주>도 ‘한 가지 센터’만 봐도 안다.
66. <월명동의 산 하나>만 봐도 그 지역의 산이 ‘악산’인지 ‘순한 산’인지 안다.
67. 이단의 말씀과 교리는 ‘하나’만 들어도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
68. 이단은 ‘거짓’을 핵에 놓고 ‘참’으로 위장하니 잘 모른다.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다. 이단이다.
69. 그 음식도 ‘하나’만 집어 먹어 보면 안다.
70. 사람도 ‘그 행위 하나’만 봐도 안다.
71. 혈액형도 ‘손가락 하나의 피’만 검사해 보면 안다.
72. <한 주권권의 한 사람>만 봐도 ‘백인’인지, ‘황인’인지, ‘흑인’인지 알 수 있다. 육계도 영계도 그러하다.
73. <불신자 한 사람>만 봐도 아는데, 10년 20년 동안 옆에서 겪으면서도 속고 모른다.
74. <같은 족속, 같은 종>은 ‘같은 이론’이며 ‘같은 형상’이다. 의인 족속도, 악인 족속도 그러하다.
75. <하나님의 법>을 자기도 좋아하며 ‘자기 법’으로 정해라.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것>을 <자기>도 ‘죄’로 정하고, 스스로 ‘죄의 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죄’를 회개하며 소각해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죄를 싫어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 ‘죄’가 자기에게 받을 못 붙이게 되고, <자기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며 스스로 순종하게 된다.

<2017년 1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눈으로 보는 데>까지만 보이듯 <생각하는 데>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므로 자꾸 생각해야 ‘높이 있는 숨은 것들’을 생각해 낸다.
2. 확실히 알지 못하면, 자기가 인식하는 대로 보이고 들린다.
3. 확실히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 제대로 말해도 이미 자기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자기 인식대로 보이고 들린다.
4. 판검사들도 100% 확실히 모르면, 진술하는 자가 제대로 말하고 고백해도 자기 인식대로 기울어져서 그 진술이 들린다.
5. 인식하는 대로 들린다. 생각하는 대로 들린다. 이는 마치 자기가 보는 쪽에서 그 방향으로 보는 것과 같다. 생각의 마음이다. 생각의 눈이다.
6. 기도할 때 정신과 생각이 흐릿하면, 그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무감각의 시간이다. (한마디로 개뿔도 아니다.)

7. 정신과 생각이 생생한 상태에서 100% 절대적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그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된다.
8. 영적인 쪽과 육적인 쪽이 뛰면, 항상 '영'이 이겨야 된다.
9.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여 사는 자>가 '육'과 겨루어 이긴다. 이런 자가 '승리한 삶을 산 자'다.
10. 서로 모르면, 적이 된다.
11. 서로 풀면, 응어리가 풀어진다.
12. 응어리가 있는데 안 풀고 계속 가만히 두면, 응어리가 더 커져서 쓰러진다.
13. 응어리가 있으면 하나 되지 않으니, 하나님은 쪼개서 섭리하신다.
14. <죄>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계속 '그 죄값'을 받게 된다.
15. <죄>를 '옷의 때와 더러움'이라 하자. <회개>는 '옷을 빨아서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라 하자. 옷을 빨아서 옷의 더러움을 없애지 않으면, 차라리 옷을 벗고 알몸으로 깨끗하게 다니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죄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해결해야 된다. 그러므로 '죄'와 상관없게 만들어야 된다.
16. 꿈은 눈 속에서만 사니까 강하다고 했더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루 이틀 해서 그리 강하게 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하여 체질이 된 것이다. 인생도 그러하다. 연단하고 만들면 강하다." 하셨다.
17.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호기심이 없다.
18. 지속적으로 찾아야 횡재를 만난다.
19. <밭의 보화>는 숨겨져 있으니, '찾아야' 있다.
20. <보화>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듯이 팔지 않는다.
21. <보화>는 아무도 못 본 것이다. 지상에 숨겨져 있으니 '찾아야' 된다.
22. 사람들이 이미 쓰다가 파는 것들 중에도 <자기가 찾는 보화>가 있다. 이 역시 365일 천지 사방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알고 계신다. 고로 간구해라. 간구하면, 감동을 주어 '보화'를 찾게 해 주신다.
24. <하나님의 것>도 '구하고 찾아야' 주신다.
25. <인간>은 봐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을 1년, 10년, 100년씩 두고 알지만, <성령>은 동시에 겉도 속도 다 아신다.
26. <작은 것>을 두고 '크게' 기대하고 실천하면, 기대가 어긋나고 실망하여 결국 못 하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27. <토끼>를 <치타>로 기대하며 키우면, 기대에 어긋나서 못 키운다. 사람도 그러하다.
28. <큰 것>도 '작게' 기대하고 실천하면, 쉽게 해진다.

29. <치타>를 기르면서 <토끼>만큼만 기대하면 얼마든지 기대 이상으로 얻을 수 있으니, 기르는 자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30. <강한 햇빛>도 가리면, ‘빛’을 잃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31. 구시대에는 ‘새 시대의 빛’을 가린다. 고로 새 시대에서 ‘새 시대의 빛’을 비춘다.

32. 존재물은 모두 ‘개성의 작품’이다.

33. <삼위일체가 주신 축복 중의 하나>는 ‘삼위가 원하시는 일을 시키는 것’이다. 고로 <삼위가 주신 일을 맡는 것>은 ‘축복’이다.

34. 한순간에 수백 가지를 동시에 눈으로 보고 느끼듯이, 하나님은 지구 세상 73억 명이 하는 말을 동시에 다 들으신다. 고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대화해라. 듣고 합당하면,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2017년 1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들은 것>이 없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2. <배운 것>이 없으면, ‘내놓을 것’이 없다.

3. 매일 배워서 매일 ‘뇌 그릇’에 담아라.

4. <육>이 태어나면 <육>으로 인해 <영>도 태어나고 <혼>도 태어나서, <육신>이 성장하듯 <영>도 <혼>도 성장한다.

5.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영과 혼의 형상과 모양’이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6.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육의 삶과 형체’가 만들어지듯이,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영과 혼의 형체’가 좌우된다. 또한 <영과 혼 자체의 행위>로도 ‘영과 혼의 형체’가 선하게, 혹은 악하고 불의하게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육>이 한 번 태어났으면, <육신>이 어렸을 때 죽어도 <영과 혼>은 죽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7. <육이 어렸을 때 죽어서 육의 행위를 받지 못해 성장하지 못한 어린 영들>은 메시아를 믿고 의를 행할 기회가 없다. 고로 <이런 어린 영들>은 천사들이 ‘영의 세계 천국’으로 데려가서 키워서 거기서 존재하게 한다.

8. <육신이 죽지 않고 육과 함께 존재하는 영들>은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선한 영’으로 변화되거나 ‘불의한 영’으로 변질된다. 그에 따라서 그 영도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9. 육이 어렸을 때 죽었기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어린 영들>은 천사들이 데리고 가서 키우고, <스스로 존재할 정도가 되는 영들>은 ‘선악 간의 자기 육의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10. <천지 만물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를 통해 선포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 자들의 영>은 하나님 주관권의 생각으로 형성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이단에 속하여 산 자들의 영>은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받고 ‘사망, 흑암’으로 가게 된다.

11. <육신>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주관으로 사니, 그 <영>도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간다.

12. <영>은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자기 육신이 산 대로 간다.

13. 행하고 사는 대로 간다.

14. <지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산 자들의 영>은 ‘그 육의 삶과 행위’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

15. <지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 자들의 영>은 ‘그 육의 삶과 행위’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에 속해 살고 있다.

16.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의 영>을 보면, ‘사망과 어둠의 주관권’에서 살고 있다. <기회를 줘도 끝내 안 믿는 자들의 영>은 결국 ‘영원한 사망, 지옥’에 처해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살게 된다.

17.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 <지구 세상>이 존재하듯, 지구의 절대적인 상대적 세계로 <지옥과 천국>도 존재한다. <지상의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좌우되어 ‘그 영의 형체가 형성’되고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갈라져 간다.

18.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정말 많다. 지옥과 천국도 모르고 산다.

19. <지옥>이나 <천국>은 육신이 죽은 후에 확인하고 아는 세계가 아니다. 육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으로 인해 ‘영의 세계’도 알게 된다. 마치 자기 나라에서 살면서 다른 나라에 가 보면 그 나라를 알듯이, 자기 육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혼으로 꿈 영계에만 가 봐도 ‘영의 세계’를 안다. <영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20. <꿈>은 ‘육신의 삶’을 반영한다. 곧 ‘혼의 세계’다. <혼의 세계>에서는 ‘자기 혼’이 보고 듣고 겪는다. 그 위에 <영의 세계>가 있다. 혼이나 영이 그 세계에 가서 보면, 알게 된다.

21. <혼의 세계>도 ‘차원’이 많다. <낮은 단계의 혼계>는 ‘자기 육신의 행위와 삶의 반응과 영향으로 보고 겪는 단계’다. <더 높고 깊은 단계의 혼계>에 가면 완전한 혼적 세계가 있어서 ‘혼의 활동과 존재 세계’를 보게 된다. <지상영계 차원>에 가면, ‘영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 각자 ‘자기 급’대로 확실하게, 혹은 흐리게 그 세계를 보게 된다.

22. <영의 세계>는 ‘자기 영’이 보고 듣게 된다. 확실하게 보고 듣고 겪는다.

23. <영의 세계>는 자기의 어떤 영적 현상에 의해 보고 듣고 겪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한 세계가 아니다. 100% 확실히 존재한다. 배우고 연구하면, 밤마다 혼도 영도 보게 된다.

24. 절대자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어 그 말씀을 행하면서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를 깨닫고 제대로 보게 된다.

25. <성령>이 ‘인간’을 쓰고 행하면, ‘인간의 형상’으로 보인다.

26. <영의 세계>에 가서 봐야 ‘영의 몸’을 본다.

27. <육의 세계>에 나타나면 ‘육신’을 통해 보게 된다.

<2017년 1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실천>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2. <실천>으로만 해결된다.

3. 급한 것도 <실천>으로 해결되고, 안 급한 것도 <실천>으로 해결된다.
4. 실천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해라. 그래야 지혜로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다.
5. 실천하려면, 실천할 것들을 ‘생각’해라. 그래야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다.
6.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생각’에서 잊으면, 시간이 있어도 못 한다. 잊지 않으려면 늘 생각하고, 기록해 놓고 수시로 봐라. 그리고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신속하게 실천해라.
7. 실천하고 나서 그 일을 다 했다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아라. 그러면 빠른 보람도 없고, 생각도 식고 뛰던 몸도 식어서 잘 안 해지고, 다음 일을 할 때 시간에 쫓기게 된다. 실천했으면, 잠시 충전만 하고 바로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움직여야 된다.
8. 실천할 때는 ‘성령과 주’를 부르면서 같이 해야 된다. 혼자 하면 힘들고, 늦고, 약하고, 큰일은 못 하고, 해도 제대로 못 하고, 이상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자기중심으로 하게 된다.
9. 초를 다투며 경주하듯, 빛을 잡듯 실천해라. 그러려면 ‘성령과 주와 일체 된 생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야 된다.
10. 초를 다투면서 경주하듯 실천할 것들이 많다. <초를 다투는 일>일수록 ‘성령과 주’와 함께 해야 된다.
11. 순간 판단하고 빛을 잡듯 빨리 실천하려면, 성령님의 특징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12. <성령의 감동>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많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많으니 꼭 기도해라. 기도해야 신령해지고, 기도해야 평소에도 성령과 가까이 일체 되어 행하게 되고,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인지 <자기 생각>인지 바로 분별하게 된다.
13. 평소에도 늘 성령과 주와 대화하며 기도해야 <초를 다투는 일>이 생겨도 즉시 물어보고 분별하게 된다.
14. <물어보는 것>이 ‘확인’이다.
15. 빨리 실천하려면, 이러한 ‘길’을 만들어 놓아라.
16. 평소에 <빨리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고, 급할 때 그 길을 사용하면서 실천하면 빠르다.
17. 실천하면 될 일인데 자꾸 안 하고 미루면, 나중에는 엄두를 못 내고 안 하게 된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실천하면 할수록 잘해진다.
18. <차원 높이는 실천>을 해라. 그래야 ‘작년보다 더 큰 것’을 얻는다.
19. 차원을 높이려면 삼위께 깊은 기도, 삼위와 깊은 대화를 해라.
20. <돌포도나무>가 ‘열매의 차원’을 높이려면 <참포도나무>와 접붙여야 되듯이, <실천의 차원>을 높이려면 ‘주와 일체’ 되어 ‘주와 함께’ 해야 된다. 삼위일체는 ‘보낸 자’로 말미암아 실행하신다.
21. 하나님과 성령께서 ‘설교나 계시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듣고, 사실이 그러하니 ‘꼭 실천’해라. 실천하는 만큼 승리하고 얻는다.
22. <생각>을 잘못하면 탄 세상으로 간다. <생각>을 잘하고 실천하기다.

23. <계시>도 ‘자기 주관’이 섞이면 구정물예다 생수를 섞는 격이 된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받기다.

24. <꿈>도 ‘자기 주관’대로 풀면 안 된다. 자기 주관대로 풀면, 오해하거나 낙심하게 된다.

25. <꿈>은 ‘현실과 연결된 것’이 ‘답’이다.

26. <꿈 계시>는 대개 꾸미고 만들어서 보여 준다.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름>도 ‘실제 하늘 구름’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로 하여 말했듯이, <꿈에 나오는 자>가 ‘그 영혼’일 때도 있지만, ‘실체 대상’이 아닐 때가 많다. 하나의 ‘상징’이며 ‘비유’다.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7. 올해는 초를 다투며 경주하듯 빛같이 뛰고 달리며 실천하는 해다. 그래야 승리하고 얻는다.

28. 하루 종일 경주하듯 ‘내 할 일’과 겨루면서 최대한으로 뛰었다. 기도하고, 잠언 쓰고, 교정하고, 설교도 쓰고, 또 교정하고, 편지도 쓰고, 결재할 것들을 다 결재하고 나서 보니, 우편물을 걷어 갈 시간 ‘1초’가 남아 있었다. ‘남은 1초’에 편지들을 봉해서 봉투에 넣어 보냈다. <초>를 다투며 끝냈다. 빛을 잡듯 실천한 것이 이것이다. 겨루는 자와 경주하여 이긴 것이 이것이다.

29. <자기와 겨루는 자>가 ‘사람 상대’가 될 때도 있고 ‘일’이 될 때도 있다.

30. 환난과 핍박을 이기기, 실제 어떤 상대와 겨루어 이기기뿐 아니라 기도하기, 감사하기, 영광 돌리기, 새벽 제시간에 일어나기, 제때 행하기 등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할 일들과 경주하듯 겨루기’다.

31. <자기 생활>과 <할 일>과 <시간>과 겨루며 뛰고 달려서 승리하여 얻고, 삼위와 주와 형제들과 함께 잔치해라.

32. 초를 다투며 경주하듯, 빛을 잡듯 연속해서 실천하면서 도전해라!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평생 섬세한 것을 못 본다.

2. 섬세히 봐야 신비함을 느껴, 뇌가 찌릿찌릿하다.

3. 윤곽을 보아라.

4. 아름다움은 섬세해야 이루어진다.

5. <섬세한 차원>이 ‘최첨단 차원’이다. 고로 사람도 존재물도 섬세하게 만들어야 더 신비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가 있다.

6. <섬세하게 보는 자>가 ‘기이함과 신비함’을 느끼면서 본다.

7. 사람도 섬세하게 갖춰질수록 더 아름답고 신비한 인생이 된다.

8. 초상화도 섬세하게 그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제대로 못 그려 낸다.

9. 작품도 섬세하게 만들수록 그 존재물의 형상과 모양을 잘 드러내고, 더 찬란한 빛을 비춘다.

10. <한 가지>로만 보지 말고, ‘다른 형상’으로도 보아라.

11. <두 가지, 세 가지 형상>인데도 ‘한 가지’로만 보면, ‘그 한 가지’만 보인다.
12. 세상 존재물들의 형상은 수만 가지라서, 찾아보면 ‘한 가지’뿐 아니라 ‘다른 닮은 형상’이 많다.
13. 사람이 손수 만들지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어떤 형상과 모양이 섬세하게 만들어진 존재물’이 있다. 이것은 대결작이다.
14. <어떤 형상을 얼마나 섬세하게 닮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좌우된다.
15. <동물의 형상>보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존재물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
16. 돌 하나도 ‘사람의 어떤 지체를 닮았느냐’, 그 형상에 따라서 더 귀하고 가치 있게 본다.
17. 수석 전문가들이 <많은 형상적 중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보는 돌>은 ‘자기를 닮은 자화상 돌’이다. 어떤 누구보다 ‘자기’를 닮았으니 그리도 귀하게 본다.
1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보신다. 그러나 ‘삼위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닮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최고로 귀하게 가치 있게 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신다. 삼위의 생각을 닮아서 행하는 만큼, 그를 통해 삼위의 행하심과 뜻과 역사를 나타내신다.
19. 자연석도, 존재물들도 ‘어떤 형상’을 이루었는지 보아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눈에 띄고 보인다.
20.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과 모양>만 보지 말고 <닮은 다른 형상>을 찾아보아라. 그러면 제1은 무엇을 닮고, 제2는 어떤 존재물을 닮았는지 각종으로 알게 된다.
21.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 존재물들이 있다. <자연의 존재물들>을 잘 보면, ‘다른 존재물들’을 닮은 것들이 많다.
22. <사람 전체를 닮은 형상>도 있고, <사람의 한 지체만 닮은 형상>도 있다.
23.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귀히 보는 형상>이라도 ‘세밀’하게 보면 짜릿하고, 더 감탄하게 되고,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된다.
24. <섬세함>은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으로 이루어진다.
25. 사람의 지체 중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을 닮은 모양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차이’를 두고 더 아름답게 형성된다.
26. 화가가 초상화를 그릴 때 눈이나 입이나 코나 각종 지체를 그리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더 섬세하게 그리느냐.’ 하는 ‘그 조금의 차이’로 원 존재의 형상과 표가 나게 닮아 보인다.
27. 하나님의 창조물인 <만물>도, <인간의 지체>도 섬세하게 보지 않으면,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그 단계는 못 본다.
28. <섬세하게 보는 자>만 섬세하게 만들어진 존재물을 보고, 미와 신비를 첨단으로 깨닫고 느끼고 감탄한다.
29. 미인도 보통 사람들과 ‘조금의 차이’를 두고 섬세하게 형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 조금의 차이’로 훨씬 미가 돋보이고 빛난다.

30. 돌 형상도 닮은 것을 두고 조금 더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조금의 차이’로 눈에 확 띄게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더 나타낸다. 신앙도, 자기 삶도, 생각도, 행위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조금만 더 닮았어도 확 가치가 높아져서 빛나게 된다.
31.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의 말을 들어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좋게’ 건물을 지으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고 한다. 고로 ‘다른 건물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인데, 값은 3분의 1을 더 받게 된다고 한다. 인생도 그러하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데, 그리 몸부림치며 행하여 이룬 것이다.
32. <휴거>를 중심해서 ‘한 차원 위의 단계’가 얼마나 다른지, 그냥 보면 모른다. 황금성 천국에 가면 알게 된다.
33. 글을 써 놓고 교정하는 것도 ‘한 차원을 높일 때’ 내용이 더 빛난다.
34. 존재물도 ‘조금 못한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신앙도, 인생도 그러하다.
35.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를 보아라. ‘조금의 차이’로 금메달을 땀다.
36. 존재물도 ‘조금의 차이’로 더 섬세하고 좋아서 ‘금메달의 존재’로 취급받는다.
37. 어떤 것을 닮은 형상은 없어도 <형체가 기교하게 이루어진 돌>은 하나의 귀한 작품이다. 삼위 앞에 인생도 그러하다.
38. <형상과 모양이 눈에 확 띄게 이루어진 돌>은 ‘형상석’이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돌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삼위 앞에 인생도 그러하다. ‘삼위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눈에 확 띄게 닮은 인생’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인생이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사랑받을 인생이다.

<2017년 2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3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닮은 구원자>를 세상에 보냈어도, 자기가 ‘그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대하면, 평생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
40. 자기 생각에서 ‘그 존재물이나 그 사람을 닮은 형상’을 생각하지 못하면, 평생 ‘그 형상’을 못 보고 ‘그 가치’를 모른다.
41. <본 형상을 본 적이 없는 자>는 어떤 존재물이 그것을 닮았어도 ‘그 형상과 모양’인지 모른다.
42. <봤어도 생각에서 잊은 자>는 다시 생각하고 볼 때까지 모른다.
4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그 말씀과 행하심을 아는 자>라야 ‘삼위를 닮아서 삼위와 같이 생각하고 행하는 자’를 알아보고 감탄하고, 신기하게 생각하고 귀히 대한다.
44. <미인을 못 본 자>는 ‘미인을 닮은 자’가 있어도 모른다.
45. 월명동에 있는 형상석을 봤어도 <원 주인의 형상을 모르는 자>는 그 돌이 ‘그 사람’을 닮았어도 모른다.
46. <하나님을 상징하는 돌 작품 하나>를 사고, 이것이 ‘본 존재물을 얼마나 닮았는지’ 봤다. 그런데 좀 아쉽게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때 하나님이 “윤곽을 보아라.” 하시어 윤곽을 봤다. 그 돌의 윤곽을 보니, ‘본 존재물의 모양’을 닮은 형상이었다. 그런데 닮은 것이 조금밖에 표가 안 난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섬세하게 닮으려면 ‘조금 차이’가 나야지 ‘많은 차이’가 나면 선(線)을 넘어서 미와 아름다움이 없고 오히려 흉하다. 조금 더 섬세하게 닮으면, 본 존재물의 모양을 닮은 격이다.” 하셨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섭리사에 주려고 지구 창조 때부터 미리 만들어 둔

형상적'이다.

47. 더 강조하다가 '본 형체보다 더 크게' 하면, 다른 형상이 된다.

48. 형상석을 자세히 보아라. 섬세하게 닮으려면, 약간만 표가 나야 된다.

49. 무대를 더 강조하여 너무 크게 만들면, 무대가 '제2의 홀'이 되어서 무대같이 안 보인다.

50. 어떤 모양을 만드는데, 누가 너무 작다고 해서 크게 만들었다. 그런데 '본 모양'으로 보고 감탄하는 자가 없고, 다들 '다른 모양'으로 생각했다.

51. 병아리를 크게 만드니 '귀여운 병아리'로 안 보고, '병아리를 닮은 어미 닭'으로 봤다.

52. 전에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53. 조금만 더 해도 본 형상을 섬세하게 닮는다. 사람도 '조금의 차이'로 닮고자 하는 것을 더 닮게 된다. 삼위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닮는 것도 '조금의 차이'로 눈에 확 띄게 표가 나게 닮게 된다.

54. <본 존재물>은 길이가 7cm인데 <닮은 것>은 길이가 9cm이면, 닮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55. 눈을 강조한다고 눈만 크게 그리면, 눈 같지 않다.

56. 월명동도 '핵'을 강조한다고 그 부분만 크게 만들면, '전체의 구조'가 안 맞게 된다.

57. <구조>가 맞아야 아름답다.

58. 가령 <약수 샘>이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너무 크게 만들면, '목욕탕'같이 보인다. <선녀탕>도 너무 크면 '연못'으로 보인다.

59. <성전 안 폭포수 밑에 있는 작은 수영장>도 더 크면 '연못'으로 보인다. 고로 작게 '선녀탕'같이 만들었다.

60. 하나님은 섬세하게 구상하여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섬세하게 안 보면 섬세한 것을 못 본다.

61.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나 <사람을 중심한 생명체들>은 섬세하게 창조되었다. <만물>이 '본 존재의 형상'을 섬세하게 닮을수록, <사람>이 '원 존재인 삼위의 형상'을 섬세하게 닮을수록 더 귀하고 신비한 작품이 된다.

62. <본 존재>를 닮지 않고 <선(線)>을 넘어가서 닮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섬세함이 사라진다.

63. 어떤 존재물을 안 닮았어도 '자연을 닮은 형상석'도 있다.

64. <산, 바위 절경을 닮은 형상석>도 있다. '자연 형상 작품'이다.

65. 섬세하게 안 보면, '보화 작품'을 뺏긴다. 귀히 보지 않으니, '아는 자'에게 뺏긴다.

66. 생명들도 섬세하게 안 보면 가치를 모르니, 존재하고 있어도 못 본다.

67. 사람이 섬세하게 만들어졌으면,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인생이다.

68. 만물도 섬세하게 생겼으면, 귀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존재물이다.

69. 월명동도 섬세하게 봐야 ‘형상과 모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구상하시어 우리를 통해 수고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70. 섬세하게 구상하고 만들었어도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스쳐보니, ‘보통’으로 보인다. 그러나 깊이 보면, ‘구상하기도 어렵고 만들기도 어려운 엄청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71. <성자바위 하나>에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지 깨달아라.

72. <월명동 지형>도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신비한지 깨닫고 보라.

73. <삼위를 닮은 자, 시대 구원자>를 볼 때 ‘그 사명’을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다. 대함도 달라지고, 생각도 행실도 달라진다. 그의 말을 들어 보아라.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들어 보아라. 그리고 그가 해 놓은 것을 보아라. 과연 홀로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자세히 보아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없다.

<2017년 2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74. 섬세하게 실천해라.

75. 섬세하게 생각해라.

76. 섬세하게 관리해라.

77. 마지막에는 ‘조금 더 섬세히’ 하여 세밀히 만들어라.

78.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1등이냐, 2등이냐가 좌우된다.

79. 하나님은 계시하실 때 진실로 정말 섬세하게 보여 주신다. 고로 세밀하게 섬세하게 풀어야 된다. 그래야 뇌가 찢릿찌릿하여 흥분되고 감탄하고 충격 받고 기뻐하며 사경을 헤맨다.

80. <글>로 표현을 잘하려면 ‘섬세하게, 자세하게’ 써야 된다. 그래야 그 글을 읽고 뇌가 자극받고 짜릿하게 느끼며, 깨닫고 감탄하며 기뻐한다.

81. <기도>도 ‘간절히, 섬세히, 세밀히’ 해야 <그 말>이 ‘삼위’께 가서, 삼위가 ‘기도하는 자의 심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82. 기도가 간절하고 섬세하고 세밀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삼위께 상달되어 들어주시느냐, 삼위께 상달되지 않아 안 들어주시느냐가 결정된다.

83. <말>도 ‘섬세하게 표현’할수록 듣는 자가 자극받고 바로 느끼고, 깨닫고 감동되어 기뻐하고 좋아하고 인정한다.

84. 섬세하게 만들수록 - 뇌신경같이 첨단으로 사용되고, 다양하게 극적으로 쓰여진다.

85. (성령) 섬세하게 구상하고 만들어라.

86. 사람이 늙어 갈수록 섬세한 형상이 사라져 가고, 생각도 행위도 섬세하지 못하게 된다.

87. 꼼꼼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밀하게, 섬세하게다.

88. <원 존재, 본 형상, 원본>을 닮을수록 ‘귀한 대결작 보화’다.
89. (하나님, 성령님) 모든 존재물은 <윤곽>이 ‘형상을 이루는 데 기본’이다.
90. <혼과 영>이라도 ‘육신’같이 행하면, ‘육신’같이 보고 대하게 된다.
91. 본 존재물과 세밀하게 닮았으면, ‘실체 본 존재물’같이 느껴진다.
92. (하나님) 아직 ‘자기 것’이 아닌데, 뭐 그리 섬세히 윤곽을 찾고 있느냐.
93. 먼저 ‘자기 것이 된 것의 윤곽과 형상과 모양’을 섬세히 보아라.
94. <윤곽>이 ‘얼마나 섬세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형상>이 좌우된다.
95. <윤곽>이 ‘본체 형상을 이루는 데 극적인 기본 역할’을 한다.
96. <본 형상을 닮은 윤곽>이 또렷할수록 - 더 현실감을 주고 더 가치가 있다.
97. 성경 말씀에 “윤곽 있게 확실히 행해라.” 했다.
98. <규모 있게 행하라> 함이 <윤곽 있게 확실히 행하라> 함이다.
99. 미인과 미남은 ‘윤곽이 뚜렷’하다.
100. 형상석도 ‘윤곽이 뚜렷’해야 가치가 있다.
10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말씀과 행위를 닮아 윤곽이 뚜렷하고 신을 닮은 형상이 뚜렷한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 된 자’다.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만물 계시>는 ‘존재의 이치’를 깨닫게 해 준다.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계시해 준다.
2. <보여 주며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에 관한 계시’다.
3. 가령 새벽 1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했다 하자. 이때 시계를 봤는데 새벽 1시가 다 돼 가면, “기도 시간 됐으니 기도하자.” 하고 깨닫게 하는 계시다.
4. 모르니, 알고 깨달도록 주는 계시다.
5. <하나님의 계시>는 깨닫게 해 준다. 위기 때나 합당한 때 깨달도록 모두에게 만물을 보여 주며 계시를 해 주시는데, 깨달지 못할 뿐이다.
6.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면, ‘계속 깨닫고 아는 계시’를 받게 된다.
7. <만물과 사물을 배우고 아는 것>은 ‘학문’이며 ‘지식’이다. 이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이치>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고 아는 것>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아는 신앙과 진리의 지식’이 된다.

8.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육에 속한 것들’이다. 이것만 배우고 끝나면 ‘세상 지식’에서 끝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접목시켜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그것이 ‘산 교육’이 되고 ‘영원한 교육’이 되어, <영>까지 연관되어 ‘영원한 것’을 깨닫고 얻게 된다.

9. 월명동에 가서 ‘나무와 돌과 물과 땅, 그리고 만든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만 배우면 ‘지식’에서 끝난다. 이는 ‘육적인 자’다. ‘주를 안 믿는 자’와 똑같다. <그것을 구상하고 만드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결시켜 사연을 배우고 깨달아야 ‘삼위’와 연결되어 소통하고 얻고 잔치하며 먹고 마시고, ‘영적인 자’가 되어 무한한 것을 얻고, 육도 영도 형통하게 된다. <창조주>와 <보낸 자>를 알아야 산 교육이 되어 ‘육과 영의 것’을 계속 얻게 된다. 고로 ‘영원한 것’까지 영향을 받고 누리게 된다. <만물>도, <세상 지식과 학문>도 ‘창조주’와 연결하여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학문의 세계, 육의 세계’에서 끝난다. 고로 ‘죽은 학문, 죽은 지식’이 된다.

10.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현대의 학문과 지식>은 모두 ‘죽은 학문과 지식’이 되었다.

11. <모든 학문과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데’서 나왔다. 고로 모두 ‘하나님과 연결’시켜 깨달아야 된다.

12. 어떤 집에 가서 ‘주인 이야기’는 안 하고 ‘집 구경’만 하고 나온 자는 핵이 없고 생명이 없는 지식만 소유한 자다. 고로 감동도 없고, 그 지식은 재미없고 지겹고, 기쁨도 뜻도 없다. 하나님 앞에 인생들도 그러하다.

13. 인간 자체, 만물 자체, 세상 학문과 지식 자체에서 놀고 끝나면, 허무하게 ‘육’으로 끝난다.

14. <철학>도 ‘절대자 하나님’과 연결시켜 깨닫지 못하면, ‘지극히 육적인 논리와 학문과 지식에서 끝나는 죽은 철학’이 된다. 그 철학으로는 ‘인생길’도 못 찾는다. 그저 ‘인생’만 논하다가 끝난다.

15. <학문>은 ‘육적인 것’을 논하고, <신앙>은 ‘영적인 것’을 논하고 배우고 행하여 ‘영원한 것’을 얻는다. <육>이 죽어도 <영>으로 얻고 누리니, 육적인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16. 하나님은 항상 <육적인 세계>를 보여 주시고, ‘육의 세계’를 통해 <영원한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 주신다.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근본자 하나님’을 알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육계에서 육으로도 영계에서 영으로도 본 주인과 함께 ‘영원한 것’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17.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를 통해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하다.

18. <보이는 육체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19. <보이는 육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혼체와 영체’를 입증할 때, 가장 확실하다. 이와 같이 <보이는 지구 세상과 천지 만물의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입증하여 깨닫게 하고 밝힌다.

20. <육체>가 있으니 ‘혼체와 영체’가 있다.

21. <보이지 않는 영체와 영의 세계>가 있기에 거기에서 ‘보이는 육체와 육의 세계’가 파생된 것이다.

22.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질세계’를 창조하셨다.

23. 흔히 사람들은 <보이는 육의 세계>는 만질 수 있는 실체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하나의 화면 속에 나오는 사람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무지개같이, 구름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같이 만져지는 실존체다. <육체>는 늙어 가고 쇠하고 허무하게 변해 가지만, <하나님과 구원자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의 영체>는 육의 행위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고, 늙지도 않는다. <늙고 쇠하여 흉한 영체>가 있는데, 이는 그 육의 행위가 악하고 불의하기 때문이다. <육>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일체 되고 삼위를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영체'는 빛나고 젊고 아름답다.

24. <육의 지식>과 연결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깨달듯이, <자기 선악 간의 육의 행실>을 영적으로 연결하여 '자기 영'이 어떤지 보아라. <육신의 선악 간의 행위>대로 '영'이 변화되고 형성된다.

25. 자기 육이 세상에서 삼위와 구원자를 대한 대로 <영>이 형성되듯이, <자기 영이 거할 집과 환경>도 형성되어 영이 그 세계로 간다. <하나님이 기본으로 해 준 것>에다가 <자기 육의 행위로 만든 것>을 더하여 '자기 영'도 형성되고 '자기 영이 거할 집과 환경'도 형성된다.

<2017년 2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주관적 계시>를 받아 놓고, '현실'과 안 맞다고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의심하고 원망한다.
2. <자기 주관적 계시>이니,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게 된다.
3. <자기 주관적 계시>라도 '지식'으로 잘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도 맞을 때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4. 이단은 '자기 주관으로 한 것'이 맞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고로 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5. <자기 하나>에서 쓰이면, '개인 하나'다.
6. 섭리사에 있을 때는 '큰 자'였지만, 섭리사를 떠나니 과거같이 '한 인생'에 불과하다.
7. 산은 밋밋한 것보다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으면 걷고 오르내릴 때마다 그 형상에 따라 놀이기구를 타는 것같이 더 스릴을 느낀다.
8. 길도 <소로 길>과 <대로>는 보고 느끼는 맛이 다르다.
9. 굴도 <평지의 산책길 같은 굴>과 <절벽 코스가 있는 굴>은 맛도 느낌도 다르다.
10. 사람도 <잔잔한 호수 같은 자>가 있고 <바다의 파도처럼 스릴 있는 자>가 있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스릴 있는 자>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삼위와 대화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주신 것의 근본을 알고 흥분하고 황홀해하는 자다.
12. 감사, 감격, 감탄하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스릴'이다.
13. 사람들은 스릴 있게 보이려고 각종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 주고, 각종 것들을 연기하면서 보여 준다.
14. <영의 세계의 것>을 봐야 된다. 영의 세계는 '극치의 세계'다. 고로 '극치의 것'을 느낀다.
15. 땅에서도 '전능자가 주신 작품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며 스릴 있다.
16.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도 이미 누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간 후에 '남은 것' 중에서 고르면, '전체에서는 최고'가 못 된다. -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17. <새 역사>는 '새로운 세계'다. '새 사람'이다. 고로 '최고의 것'이 된다.

18. 어떤 사람은 작품전이나 시장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 왔다고 했는데, 그 전에 누가 ‘전체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이미 사 간 후였다. 고로 그것은 ‘남은 것 중의 최고’이지 ‘전체 중의 최고’는 아니다.

19. 수석도 이미 ‘그곳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누가 골라서 사 갔는데,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른 자’가 자기가 최고로 좋은 것을 골랐다고 한다. 주인은 이미 팔았기에 알고 있다.

20. 선생이 해외에 있을 때였다. 하루는 새벽기도가 끝났는데, 성자께서 “나와 같이 수석 주우러 가자.” 하셨다. 날이 새고 있을 때였다. 그곳은 관광지이니 이미 사람들이 수석을 다 주워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주워 갔어도 남은 것 중에서 있다.’ 하는 감동이 들어서 그 장소로 갔다. 세 번째 돌을 줍고, 다른 돌 위에 그 돌을 세워 놓고 봤다. 약간 ‘사람 얼굴’같이 보였다. 그래서 주워 왔다. 그 골짜기를 쭉 올라가면서 봤으나, 일반 돌들도 거의 없었다. 관광지라서 이미 사람들이 돌을 다 주워 가고 없었다. 집에 와서 성자가 “돌 주우러 가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주워 온 돌을 책상 위에 놓고 2m, 3m, 5m 떨어져서 자세히 봤다. 자세히 보니 ‘사람 얼굴’이었다. <앞쪽>은 ‘철모를 쓴 군인이 쳐다보는 얼굴 형상’이었고, <뒤쪽>은 ‘웃는 얼굴 형상’이었다. 그제야 “성자가 돌 주우러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이구나!” 깨닫고, 성자와 성령께 물으니 “이 돌이 맞다!” 하셨다. 수만 명이 수석을 주우려고 계속 지나갔어도 ‘이 돌’은 사람들이 나처럼 봤어도 어떤 형상인지 모르고 못 주워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고 성자께 물어보니, “이 계곡에도, 다른 계곡에도 이런 돌은 아예 없다.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념으로 예비했다.” 하셨다. 만물의 주인이 행하시고, 내게 선물로 줬음을 깨달았다. 이 돌의 뜻은 ‘군인같이 담대하고 엄위하되, 한편으로는 늘 웃으면서 살라는 뜻’으로 <자화상 표상석>이었다. 이 돌의 크기는 ‘딱 사람 머리 크기’다.

21. <과일이 나무에서 크고 있을 때> 고르면, ‘최고로 좋고 아름다운 과일’을 못 고른다. 과일들이 다 크면 <전체>를 갖다 놓고 봐야 ‘전체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과일’을 고를 수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2017년 2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주관적 계시>를 받아 놓고, ‘현실’과 안 맞다고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의심하고 원망한다.

2. <자기 주관적 계시>이니,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게 된다.

3. <자기 주관적 계시>라도 ‘지식’으로 잘 맞으면 하나님의 뜻과도 맞을 때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4. 이단은 ‘자기 주관으로 한 것’이 맞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고로 무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5. <자기 하나>에서 쓰이면, ‘개인 하나’다.

6. 섭리사에 있을 때는 ‘큰 자’였지만, 섭리사를 떠나니 과거같이 ‘한 인생’에 불과하다.

7. 산은 밋밋한 것보다 ‘기암절벽’으로 되어 있으면 걷고 오르내릴 때마다 그 형상에 따라 놀이기구를 타는 것같이 더 스릴을 느낀다.

8. 길도 <소로 길>과 <대로>는 보고 느끼는 맛이 다르다.

9. 굴도 <평지의 산책길 같은 굴>과 <절벽 코스가 있는 굴>은 맛도 느낌도 다르다.

10. 사람도 <잔잔한 호수 같은 자>가 있고 <바다의 파도처럼 스릴 있는 자>가 있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스릴 있는 자>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삼위와 대화하면서 감사 감격하고, 주신 것의 근본을 알고 흥분하고 황홀해하는 자다.

12. 감사, 감격, 감탄하며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스릴’이다.

13. 사람들은 스릴 있게 보이려고 각종 것들을 만들어서 보여 주고, 각종 것들을 연기하면서 보여 준다.

14. <영의 세계의 것>을 봐야 된다. 영의 세계는 ‘극치의 세계’다. 고로 ‘극치의 것’을 느낀다.

15. 땅에서도 ‘전능자가 주신 작품이나 땅이나 건물이나 사람들’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며 스릴 있다.

16.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도 이미 누가 제일 좋은 것을 골라 간 후에 ‘남은 것’ 중에서 고르면, ‘전체에서는 최고’가 못 된다. -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17. <새 역사>는 ‘새로운 세계’다. ‘새 사람’이다. 고로 ‘최고의 것’이 된다.

18. 어떤 사람은 작품전이나 시장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골라 왔다고 했는데, 그 전에 누가 ‘전체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이미 사 간 후였다. 고로 그것은 ‘남은 것 중의 최고’이지 ‘전체 중의 최고’는 아니다.

19. 수석도 이미 ‘그곳에서 최고로 좋은 것’은 누가 골라서 사 갔는데, ‘나머지 남은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른 자’가 자기가 최고로 좋은 것을 골랐다고 한다. 주인은 이미 팔았기에 알고 있다.

20. 선생이 해외에 있을 때였다. 하루는 새벽기도가 끝났는데, 성자께서 “나와 같이 수석 주우러 가자.” 하셨다. 날이 새고 있을 때였다. 그곳은 관광지이니 이미 사람들이 수석을 다 주워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주워 갔어도 남은 것 중에서 있다.’ 하는 감동이 들어서 그 장소로 갔다. 세 번째 돌을 줍고, 다른 돌 위에 그 돌을 세워 놓고 봤다. 약간 ‘사람 얼굴’같이 보였다. 그래서 주워 왔다. 그 골짜기를 쪽 올라가면서 봤으나, 일반 돌들도 거의 없었다. 관광지라서 이미 사람들이 돌을 다 주워 가고 없었다. 집에 와서 성자가 “돌 주우러 가자.”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주워 온 돌을 책상 위에 놓고 2m, 3m, 5m 떨어져서 자세히 봤다. 자세히 보니 ‘사람 얼굴’이었다. <앞쪽>은 ‘철모를 쓴 군인이 쳐다보는 얼굴 형상’이었고, <뒤쪽>은 ‘웃는 얼굴 형상’이었다. 그제야 “성자가 돌 주우러 가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돌이구나!” 깨닫고, 성자와 성령께 물으니 “이 돌이 맞다!” 하셨다. 수만 명이 수석을 주우려고 계속 지나갔어도 ‘이 돌’은 사람들이 나처럼 봤어도 어떤 형상인지 모르고 못 주워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닫고 성자께 물어보니, “이 계곡에도, 다른 계곡에도 이런 돌은 아예 없다. 네가 여기 올 줄 알고 기념으로 예비했다.” 하셨다. 만물의 주인이 행하시고, 내게 선물로 줬음을 깨달았다. 이 돌의 뜻은 ‘군인같이 담대하고 엄위하되, 한편으로는 늘 웃으면서 살라는 뜻’으로 <자화상 표상석>이었다. 이 돌의 크기는 ‘딱 사람 머리 크기’다.

21. <과일이 나무에서 크고 있을 때> 고르면, ‘최고로 좋고 아름다운 과일’을 못 고른다. 과일들이 다 크면 <전체>를 갖다 놓고 봐야 ‘전체 중에서 최고로 좋은 과일’을 고를 수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2017년 2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태양이 변함없이 빛을 비추듯 변함없어야 신이 된다.

2. 지구가 변함없이 공전과 자전을 하듯이, 변함없이 실천해야 신이 된다.

3. 해와 달과 별과 지구같이 사람도 절대적으로 제 할 일을 하며 실천해야 된다.

4.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듯, 절대적으로 할 일을 해야 된다.

5. 사람이 시계를 만들 때 계속 움직이며 가게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매일 뛰고 달리고, 걷고, 먹고, 자고, 쉬게 창조해 놓으셨다.

6. 시계가 가지 않으면 ‘죽은 시계’가 되고, 지구가 가지 않으면 ‘죽은 지구’가 되듯이, 사람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존

재'가 된다.

7.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목적하고, 이 세상에서도 이것에 도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8.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를 “사람은 매일 경주하듯 뛰면서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정말 피곤하고 신경 쓰입니다. 꿈도 겨루는 자와 경주하면서 쫓기는 꿈을 꿉습니다.”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유익과 너의 유익, 나의 할 일과 너의 할 일을 두고 경주하듯 뛰는 것이니, 피곤한 삶이 아니다. 생활의 보화를 캐려면,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경주하는 자가 한눈팔지 않고 집중하듯, 너희도 한눈팔지 말고 보람과 기쁨으로 열심히 실천하라 함이다. 너희는 <삼위와 같이 사는 것>을 목적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며 살아라. 마치 경주하듯 집중하여 삼위와 보낸 자와 마음도 행실도 일체 되어 실천해라.” 하셨다.

9. 어떤 장소는 한 번 가 보고 두 번째에 다시 가면, 같은 것을 보니 스릴과 감탄과 기쁨이 없다.

10. 놀이동산은 갈 때마다 스릴 있는 것을 타며 실천하니, 또 스릴을 느낀다. 고로 100번, 1000번을 가도 실천하는 만큼 스릴을 느낀다. 산이나 굴이나 절벽 코스도 처음 갈 때도 감탄하고, 100번, 1000번을 가도 몸으로 실천하며 오르내리고 절벽을 가야 하니 갈 때마다 스릴을 느끼며 감탄한다. 인생 삶도 ‘실천’해야 스릴을 느끼고 감탄하며 산다.

11. 스릴을 느끼되, ‘안전’하게 스릴을 느껴야 된다.

12. <월명동>도 갈 때마다 스릴을 느끼게 구상해 놓았다. 고로 갈 때마다 이벤트를 구상하고 가서 실천해야 된다. 개인도 그리하고 대(大)모임을 할 때도 그리하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고 갈 때마다 이상적인 것을 얻고 누린다.

13. 작품도 ‘스릴 있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볼 때마다 스릴을 느낀다.

14. <월명동>도 아름다움, 신비함, 웅장함,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구상의 작품이다.

15. <성자바위>도 ‘볼 때마다 스릴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16. <월명동의 생명나무 형상석>도 볼 때마다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과 스릴을 느끼는 작품이다.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고 가셔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작품으로 주셨다.

17. 작년 110일 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시로 ‘생명나무 형상석’을 주셨다. 그런 형상석은 세상에 아예 없으니, ‘수십억 년’ 동안 천연적으로 만들어서 주셨다.

18. 다 만들어 놓고서도 월명동에 가지고 오기까지 ‘21년’이 걸렸다. 고로 사연도 깊고 가치가 크다. 주기도 힘들고 얻기도 힘든 돌이다. 110일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주셨다.

19. 하나님의 자연성전에 갈 때마다 삼위일체는 ‘간구하고 묻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깨닫게 해 준다고 약속하셨다. 고로 월명동에 가면, 기도하고 대화하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나와 대화하는 궁이다.” 하셨다.

20.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고, 마음을 비우고, 너의 주관 버리고, 더러운 신을 벗듯 꺼리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나아가라.

<2017년 2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21. <천국 황금성>에서 무엇을 하면서 영원히 기뻐하고 좋아하며 사느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할 일이라 가짓수가 너무 많다. 고로 한마디로 말을 못 한다.” 하셨다.

22.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삼위와 같이 사는 것>에 도전하는 삶이다. 이 삶을 살기 위해 마치 경주하듯 뛰고 달리고, 남녀가 사랑하듯 <창조주를 사랑하며 같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도전하며 실천하며 살아라.” 하셨다.
23.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같이 사는 자>만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안다. 나와 같이 살려면, 휴거되어야라.” 하셨다.
24. 내가 앞으니 앞이 높고, 내가 서니 앞이 낮다. 고로 모두 일어나서 뛰어라. 그래야 ‘도전하는 차원’이 낮아 행하기 쉽다.
25. 휴거도 앉아서 하려면 높아서 힘들다. 서서 실천하면, 낮아서 쉽다.
26.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개인마다 돕고 살피고 사랑해 주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는 <육>도 <근본의 영>도 삼위와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수역 가지를 누리며 같이 살기 위함이다. 고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받고, ‘삼위와 같이 사는 삶’에 도전해야 된다. 이것이 <휴거의 시대>에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가 되어 사는 삶이다. 올해는 이것을 두고 마치 경주하듯 한눈팔지 말고 집중하여 실천해라.
27. <같이 사는 자>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을 안다.
28. 같이 살지 않으면서 같이 살면 뭐 하고 사느냐고 물으면, 알려 주지 않는다. <같이 사는 자>만 말을 안 해도 안다.
29. 땅에서도 같은 주관권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실천할 때만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안다.
30. <천국 황금성 휴거를 이룬 자>만 황금성에서 무엇을 하며 삼위와 같이 사는지 안다.
31. <매일 도전하면서 삼위와 같이 사는 자>만 ‘삼위의 행하심’을 안다.
32. 밖에 있다가 사람에게 잡혀 와서 <사람의 방에서 사람과 같이 사는 메뚜기>만 방도 알고, 방에서 무엇을 하면서 사는지 안다. <밖에 있는 메뚜기>는 방 안의 삶을 모른다. 그러다 지구 세상에 겨울이 오면, <밖에 있는 메뚜기>는 겨울을 맞고 다 죽는다. <방으로 온 메뚜기>는 밖에 눈이 왔는지, 다른 메뚜기들이 다 죽었는지 모른다. 사람도 이와 같이 <주의 조건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도전하여 휴거되고 천국 황금성에 간 자>만 ‘황금성의 삶’을 안다. 다른 자들은 모른다.
33. <섭리사에 있다가 나간 자들의 삶>도 섭리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르고, <섭리사 안에 있는 자들의 삶>도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모른다.
34. <같이 사는 자>만 안다.
35. <동행자>만 안다.
36. 궁금하면, 만물과도 사람과도 주와도 삼위와도 동행하며 같이 살아라. 그러면 안다.
37. 하나님과 같이 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어떠한지 알게 된다.
38. 삼위는 ‘삼위와 같이 사는 자들의 몸’을 쓰고 실천하신다. 이를 알고 보람과 사랑과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라.

1. 혼자 있을 때, 자기를 더 깨닫는다.
2. 혼자 있을 때, 상대를 더 생각하게 된다.
3. <홀로 있을 때> 인생 사는 맛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인생 사는 맛이 다르다.
4. 홀로 있을 때는 마치 기도하는 시간과 같아서 하나님을 더 찾고 생각하게 된다.
5. 조용할 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 좋다.
6. 하나님을 보통으로 찾고 대하고 살면, 하나님도 보통으로 대하신다.
7.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듯이 자기를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하나님도 기대하고 역사하신다.
8. <위대한 길>은 '혼자' 간다.
9. <큰 자를 만들 때>는 아무도 모르게 '홀로' 있게 하고 만드신다.
10. 세상의 존재물도 '홀로 존재할 때' 더 귀한 취급을 받는다.
11. 사람도 열 명, 스무 명 같이 살면 모두 비슷하게 형성된다. 그러면 같은 존재가 열 명, 스무 명 있는 것과 같다. 귀한 것이 '열 개' 있는 것보다 '하나'밖에 없으면 더 귀하게 본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1대1이 되어 자기 재능대로 개성으로 커라. 그러면 '개성이 뚜렷한 자'가 된다. 다 같이 모였을 때는 '공동체'로서 배우고, 홀로 있을 때는 '개성과 재능과 능력'으로 커야 된다. 모여 있으나, 홀로 있으나 '항상 삼위와 주 중심'이다.
13. 하나님이 '사명자'를 키우실 때는 항상 '홀로' 있게 하고 1대1로 관리하며 키우신다. 그러다 그가 홀로 연단받고 할 일을 하면, 때가 됐을 때 세상으로 내보내어 한 명, 한 명에게 그 뜻을 가르치게 하신다.
14. 홀로 있다고 쓸쓸하다 외롭다 하지 말고, 전능자를 찾고 전능자와 일체 되어 그때 자기를 만들어라!
15. 모두 같이 있을 때에는 서로 하나 되고, 삼위와도 하나 되기다. 홀로 있을 때는 삼위와 하나 되기다.
16. 두세 명과 같이 있을 때보다 '홀로 있을 때'가 훨씬 더 삼위와 하나 되기 쉽다.
17.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사람'을 보게 된다.
18. 여러 사람들이 뭉치기가 더 어렵다.
19.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면, 물어볼 때까지 못 깨닫는다. 어떤 것은 50년 만에 깨닫고, 어떤 것은 100년 만에 깨닫기도 한다.
20. <고기>는 '씹을수록' 더 맛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설명할수록' 더 맛이 난다.
21. <허황된 설명>은 구름이 떠다니다 사라지듯 '허사'로 끝나고, 구시대인들이 평생 예수님 육체만 기다리다가 끝나듯 '허무'로 끝난다.
22. <온전한 설명>은 삼위가 같이 행하신다.

23.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뜻도, 구원자도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의미’대로 제대로 증거하고 설명하여라. <맞는 것>만 역사로 건설되고 남아진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친히 하신 일>에 매일 관심을 가지고 늘 물어보아라. 안 물어보면 자기 의지, 자기 사고, 타인의 사고, 이단 같은 잘못된 논리로 잘못 행하게 된다.
25. 속 시원히 알고, 속 시원히 실천하여라!
26. <핵심>을 차지하면, 나머지는 <배경>이 되어 따라온다.
27. <하나님이 정한 것>을 찾아라. 찾으면, 육계에서 ‘개척자’가 된다.
28. 월명동 <알파바위>는 ‘앞산 동쪽 끝’이고, <오메가바위>는 ‘월명동 능선 길 전체를 흘러 내려와 문턱바위까지’다. 오늘 인봉을 땀다. (초안을 보여 준다. : 내가 오늘 땀 인봉이라서 아직 찍은 사진이 없다. 곧 보여 주겠다.) 이것을 찾고 내가 발견했다고 하니, 하나님은 “내가 정한 것을 찾았다.” 하셨다.
29.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 사이>가 ‘성전 정문’이다. 여기에 ‘문’을 만들려고 구상 중이다. * 잠시 구상한 것의 초안을 보여 줄까요? (초안 보여 주기.)
30.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에 맞는 것>만 역사로 건설되고 남아진다! 너희는 그 뜻 안에서 살고 있으니, 절대 믿고 그 뜻에 따라 행하여라. 시대가 알지 못한 땅과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며, 네 육 평생, 영 영원히 잘되고 형통하리라.

<2017년 2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자기 성격’이나 ‘하나의 생활’로 안다.
2. 하나님 안에서 ‘죄’를 없애면 ‘의인’이 된다.
3.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
4. 전능자는 ‘죄’가 없으니, 사람이 ‘죄’를 없애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5. 침에도 ‘가래침’이 있고 ‘참침’이 있듯이, 인간 삶 속의 생각과 행위에서도 ‘죄’가 있고 ‘의’가 있다. <가래침>은 뱉어서 버리듯이, <죄>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회개하여 버려야 된다.
6. <더러움>을 제거해야 깨끗하고 건강하듯이,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육도 영도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진다.
7. 새벽 1시 10분 전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팠다. 계속 가래침을 뱉어 내니, 통증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죄>는 ‘가래침’과 같다. 가래는 뱉어 내듯, <죄>는 회개해야 고통이 없어진다.” 하셨다.
8. 하나님은 ‘그가 보낸 구원자의 육신’을 통해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9.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못한다.
10.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며,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11.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제일 큰 죄’다.

12.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선의 세계’이며 ‘육도 영도 천국의 세계’다.

13. <메시아>는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

14. <사탄>은 ‘악의 존재자’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말씀을 불신한 불법의 존재’다.

15. <사람>도 하나님을 불신하면, ‘악한 사탄 같은 존재’가 된다.

16. <사탄>은 ‘죄 덩어리’다. 고로 용서를 못 받는다.

17. <사탄>은 ‘영물’이고,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다. <사탄>은 ‘회개’가 안 되고, <인간>은 ‘회개’가 된다. 고로 <인간>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18. <죄>와 <의>로 ‘영원한 세계’가 좌우된다.

1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못 가게 된다. <천국>에 못 가면, 천국 정반대의 <악의 세계, 형벌의 세계>로 가게 된다. 거기서 자기 짓값으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20. <세상 감옥>은 억울한 자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악과 형벌의 세계, 영의 감옥>은 다르다. 자기 죄가 아닌데 일점일획이라도 억울하게 짓값을 받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정확히 저울에 달아 보고 자로 재 보시기 때문이다. 사람들끼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니 억울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한다. 억울하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여 그 짓값을 받게 하신다.

21. <하나님을 안 믿은 죄, 메시아를 안 믿은 죄>는 엄청나게 큰 죄다. 그 짓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각종 악의 세계’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결국 ‘자기’가 안 믿었으니, ‘자기’가 짓값을 받게 된다.

22. 운전할 때 졸려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졸았는데 차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평생 불구로 살기도 한다. 자기도 졸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순간 졸려서 무의식중에 몇 초 졸았는데, 그로 인해 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고, 남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기도 하고, 중상을 입어 평생 불구로 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 의도하지 않았지만, 순간 무의식중에 지은 죄가 있다. 이것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아서 육신 일생 동안 고통받고, 영 영원히 고통받고 살기도 한다. 고로 매일 씻고 닦듯, 매일 작고 큰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여라.

23. 생활 가운데 순간 실수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순간 실수해서 경제에 큰 손해를 보고 평생 고통받고 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간 몰라서 실수하여 죄를 짓고 육 평생 죄의 고통을 받고, 영 영원히 지옥이나 악의 영계에서 살게 된다. <모르는 것>이 그리도 억울하다. 고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죽음과 같은 무지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24. <메시아>는 ‘죽음 같은 무지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왔다. 전능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신다. 인생들이 ‘구원자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주권권 안’으로 와서 ‘구원자’와 함께 살게 하신다. <구원>은 ‘육이 죽은 후’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이 살았을 때’ 이루는 것이다. <육신이 살았을 때> 먼저 ‘육신’을 구원하고, <그 육의 행위>를 통해 ‘영’을 구원하는 것이다. <구원의 길>은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다.

25. <무지>로 망하고, 패하고, 죽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26. 알면, ‘살 길’로 기어 나온다.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27. 주를 믿고 살아도 주로 인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육도 영도 '죄에서 구속함'을 받지 못한다. 그로 인해 육도 영도 '죄의 형벌'을 받으러 가야 된다.

28. 목감기로 목에 가래가 꼭 차 있으니, 목이 아파서 침도 못 삼키고 고통과 통증으로 연결됐다. 싹 뺀어 내니, 고통과 통증이 사라졌다. 더러운 가래침을 뺀어 내듯, <죄 덩이>를 '회개'하여 없애라. 그래야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죄로 인한 대가'도 없다.

29. 인간 스스로 선한 행실을 할지라도 <의인>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이며, 그래야 '죄가 청산'된다. 이것이 '완전한 선(善)'이다.

30. 누구든지 '죄를 청산'하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다.

31. <죄>를 회개하여 깨끗이 청산하면 - 보이는 것이 달리 보이고, 들리는 것이 달리 들리고, 생각하는 것이 달리 생각되고, 행실이 달라져 실천도 달리 하게 된다.

32. <타인에게 해를 준 죄>가 있고, <자기가 의를 행치 않고 스스로 범한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

33. 의인과 죄인의 삶의 세계는 완전히 딴 세계다.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34. <사슬에 묶여 사는 짐승의 삶>과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짐승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죄 사슬에 묶여 사는 자의 삶>과 <죄를 회개함으로 청산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35. 혼자 착하고 선하게 산 자는 그 행위대로 육신이 살 때 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원자를 믿고, 구원자를 통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자기 육과 영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간다.

36.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육과 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

37. 만물의 이치를 보아라. 만든 대로 결과가 나온다. 이리 만들었는데, 저리 되는 존재물은 없다. <나무>로 '책상'을 만들었는데 '의자'가 되는 일은 없다. 인생도 그러하다. 행하는 대로 '육'도 '영'도 형성된다.

38. <육신에 속한 것>은 '육신'과 함께 끝난다. <영>에 속해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39. 조각가가 '남자'를 구상하고 조각하는 행위로 '남자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여자 조각상'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육신이 살 때 '육'에 속해서만 살면, 그 영도 '하나님께 속한 형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40. <육>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육도 영도 '하나님께 속한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된다.

41. <영의 형체>는 '자기 육의 행위대로 형성'된다. <육>이 절대자 하나님이 그 보낸 구원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닮은 천국의 형체, 사랑의 형체'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진리와 사랑으로 낳은 영'이 된다. 고로 그 영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42. 동물들도 자기가 낳은 새끼가 '자기에게 속한 형체'가 되기에 그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43. 자기가 낳지 않은 동물과는 쪼개져서 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한다. 사람들도 '자기 형체를 닮은 자들'끼리 뭉친

다. 상대는 ‘적’으로 삼는다.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을 닮은 영’이라야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같이 살게 된다. <하나님을 닮은 영>이 되려면,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44. <하늘에 속한 형제>로 더욱 완전히 형성되려면,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세상에 속한 행위’만 하면, 마치 자동차가 좋은 길로 가다가 험한 길로 가는 것같이 - 바로 ‘길’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진다.

45. 그림을 그릴 때나, 글을 쓸 때나, 작품을 만들 때나, 집을 지을 때나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딴 형상’이 된다. 신 양생활도 그러하다. <생각과 행위>가 그릇되면, 바로 ‘딴 모양, 딴 방향, 딴 길’이 된다.

46. 조각가가 조각에 빠져서 섬세하게 조각하듯이, 하나님 안에서도 만사의 모든 일을 그리하면서 섬세하게 자기를 만들어라.

47. 상천하지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 전지전능하시기에 만물과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48. <인간>이 ‘신기하고 엄청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평소 생활’이다.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49. <죄>는 누가 말 안 해도 스스로 회개하여 깨끗이 없애야 된다.

50. <죄>는 더럽다. 썩고 냄새 나는 배설물과 같고, 각종 음식과 존재물이 폭폭 썩은 것과 같다. 고로 자기 죄도, 형제들과 민족의 죄도, 세계의 죄도 대신 기도해서라도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고 없애야 된다.

51. <죄>를 없애면, <사탄>도 ‘죄’를 따라서 간다.

52. <사탄>은 ‘죄 속에서 존재’한다.

53.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54. <죄> 때문에 ‘죄 속’에서 죽는다.

55. <죄>는 ‘악하고 불의한 생각과 행실들’이다.

56.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다.

57. <죄>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고 청산해야 된다.

58. <죄>와 함께 ‘인생’도 썩는다. ‘영’도 썩는다.

59. <죄>는 썩는 살을 치료하듯, ‘꼭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60.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될 것도 안 된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꼭 회개하여 청산해라.

61. <죄>는 미워하는 것이며, 해를 주는 것이며, 불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62. 한 남자에게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의 남편은 자주 술을 먹고 여동생을 때렸다. 하루는 여동생의 남편이 또 술을 먹고 여동생을 때리고, 술김에 칼을 들고 폭력을 휘두르며 공포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봤다. 그 남자가 여동생의 남편에게 술 좀 그만 먹고 동생 좀 그만 때리라고 하니, 여동생의 남편이 혈기를 내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찌르려 했다. 남자는 그 칼을 뺏아서 여동생의 남편을 찔러 죽였다. 그로 인해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갔다. 때리고 미워하고 폭력을 휘두르면 죽음까지 가게 되고, 미워하여 싸우다가는 이같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63.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자기 몸의 때를 씻지 않고, 더러운 옷을 빨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사는 자와 같다.

64. 자기 죄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하여 뉘우치고 진정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죄를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자는 <죄>로 인해 ‘화’를 당하고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행위’를 점점 더 하게 된다. 급기야 ‘큰 화’를 당하게 된다.

65. <죄>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죄를 없애는 길은 ‘회개’뿐이다.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사탄>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온전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보고 싶은 것을 안 봐도 살기는 한다.
2. 시장을 안 봐도 살기는 한다.
3. <영의 세계>를 못 봐도 살기는 한다. 그러나 못 보니, ‘몰라서 못 하는 세상’에 처해 산다. 못 보면 ‘본 자’에게 듣고, 배우고, 믿고, 그에 따라 행해라.
4. <모르는 자>도 살기는 한다. 그러나 <아는 자>와는 달리 ‘어둠 속’에 처해 산다.
5. 모르고도 살기는 하는데, 알지 못하여 행하지 못하니 얻지 못한다.
6. <생명>이 죽으면 끝나듯이, <영혼>이 죽으면 끝난다.
7. 모든 삶은 ‘육신을 살리는 삶’이고, 육신의 삶은 결국 ‘영혼을 살리는 삶’이다.
8. 누구나 ‘죽음’이라는 홍수에 다 잠기게 된다. 고로 삶을 살면서 항상 ‘육’에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 <육의 생명>에 신경 쓰며 살듯이, 꼭 ‘영혼’을 살려야 된다.
9. 죄를 회개하지 않고도 살기는 한다. 그러나 ‘죄’로 인해 ‘지옥’에 간다.
10.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고 모를 때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육성의 생각>을 벗어나도록 ‘한 기간’을 정해 놓고 ‘삼위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답을 달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육성’을 벗어나고 ‘자기 주관’이 없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답’을 주신다. 그래도 답을 안 주시면, ‘보낸 자’와 통하며 정확히 이야기하여라.
11. 어떤 사람은 ‘답’을 찾고도 계속 물어본다. 그러면 ‘답’을 못 찾는다.
12. (하나님) 너는 ‘이제야’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와는 ‘옛적’에 생각했다.
13. <진리>여야 ‘질리지’ 않는다. (해외는 이 부분을 잠시 설명해 줘도 좋다. <진리>는 한국말로 ‘질리’라고 읽는다. 발음이 같은 단어를 두고 표현한 ‘언어 유희적 잠언’이다.)
14. <실 가닥만 한 생각>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난다.
15. 사람이 ‘실 가닥만 한 생각’만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난다.

16. <생각>이 ‘생명’이다.

17. <생각>을 ‘살리기’다.

18.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죽었다, 살았다’ 한다.

19.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처해 있으면 ‘죽은 자’와 같다.

20. <잘못된 생각을 제대로 하게 해 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21. 그리스도는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아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다른 사람은 오래전에 했는데 왜 나는 이제 하지?’ 생각 말아라. 자기 때가 와서 하나님이 여건을 틀어 주고 깨닫게 하여 하게 해 주신 것이다. ◎ 먼저 ‘꿈 계시’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2. <꿈에 보인 것>은 ‘현실’과 연결시켜서 풀어야 된다.

3. 어느 날 한 계시의 꿈을 꾸었다. 예전에 선생 옆에 있던 사람 중에서 청소를 하던 사람이 꿈에 나타났다. 해는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었다.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높고 넓은 곳에다 널었는데, 청소하던 자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하면서 ‘빨래’를 걸으려 했다. 희고도 흰 빨래였다. 이때 선생이 “내가 밑에서 받아 줄게.” 했다. 그 흰 빨래를 걸으려니, 빨래 위쪽의 두꺼운 쪽은 아직 덜 마른 상태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다 마를 것이었다. 또, 한두 시간 있으면 해가 넘어갈 듯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래는 충분히 다 마를 것 같았다. 그래서 빨래가 더 마르게 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빨래>는 ‘사람’이고, <해>는 ‘시간, 때’다. 현실과 연결해서 푸니 -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 마른 흰 빨래’를 건듯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었다는 계시’였다. 그 빨래의 두꺼운 부분이 마를 정도의 남은 시간이 ‘사랑하는 자의 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었다. <흰 빨래>로 보여 준 것은 ‘그 사람의 깨끗한 마음과 행실’을 보여 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꿈>으로 보여 주시고 ‘현실’과 연결시켜 깨닫게 하신다. 고로 ‘해석’을 잘 해야 된다. <꿈꾼 자>만 안다. 고로 <비밀>도 ‘꿈꾼 자’만 안다. 고로 ‘좋은 꿈’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이다. 이 꿈은 조은이와 면회한 후에 이야기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항상 그 일을 할 자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신다.

4. <생명 관리>도 ‘관리할 자’를 두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신다.

5. 예전에 어떤 일을 두고 복잡하고 힘들어서 “나는 몰라.” 했더니, 성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몰라라 하면 어찌하나. 네가 해야지. 나와 같이 하자.” 하셨다.

6. 항상 ‘자기가 할 일’을 보고 안 하면, 삼위와 주는 말씀하기를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나 몰라라 하면 되느냐.” 하신다.

7.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은 밥 먹듯이, 화장실 가듯이 꼭 ‘자기’가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8. <꿈>은 잘못 풀면 ‘칼자루’를 안 잡고 ‘칼날’을 잡는 격이 된다.

9. <꿈>을 꿰어도 ‘현실’과 연결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꿈이라도 ‘해석’이 달라진다. ◎ 이제 ‘실천’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10. <실천하는 자>가 ‘신’이 된다.
11. <실천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12. <이단>이라도 실천하면 생명들을 데려가고, <참역사>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외롭게 홀로 살게 된다.
13. <실천자>는 ‘산’도 옮기게 된다.
14. 늙으면, <생각>도 흐려지고 <힘>도 없어서 실천되지 않는다.
15. 항상 ‘실천 연습’을 하면서, 그와 같이 다른 것들도 실천해라.
16. 실천하되, 그 면에서 최고로 실천해야 최고가 된다.
17. 세상 밖에 감춰진 보화도 ‘실천자의 것’이다.
18. 99%를 실천한 자는 보화를 못 얻고, 100% 실천한 자가 그 위치에 가서 보화를 발견하고 얻었다.
19. 살은 백지장만큼이라도 떨어지면 못 느낀다. 살살 조금이라도 달아야 느낀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마음과 행실’이 일체 되어 달아야 느낀다. 살이 달고 마음이 달게 생각과 행실이 삼위와 일체 되어 실천하는 자도 있고, 1m 떨어져서 실천하며 사는 자도 있고, 10~20m 떨어져서 눈에만 보이는 거리에서 실천하며 사는 자도 있고, 눈에도 안 보이는 데서 거리를 두고 실천하며 사는 자도 있다. <신부>는 살이 달듯 ‘마음과 행실이 달아 일체 되어 같이 사는 자’다. 그렇지 않으면 ‘말만 신부’다. <간판>은 달렸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집’과 같다.
21. 하나님은 인간에게 착 붙어 관리하고 살피시니, 자신의 생각을 알 듯 ‘인간의 생각’을 알고 행하신다.
22. 사랑해야 ‘상대가 자기를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
23. 가까이 봐야 ‘상대의 마음과 행위’를 안다. 직접 물어보면 더 잘 안다.
24. <마음과 행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때마다 깨닫고 확인하며 대해라.
25.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올라서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주와 일체’ 되어 있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육과 영’으로 끝난다.
26. 세상에서 살면서 지구만큼 진수성찬을 먹고 누리며 살고, 지구만큼 사랑을 누리고 살았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기억도 안 나고, 사망의 영원한 고통이 연속된다.
27.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자>를 알고 행하는 자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
28.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영광이 잡초같이 무성하다 끝나고, 한때 잠깐 꽃이 피고 지듯 끝나 버리는 인생이다.
29. 다 알고 사는데 ‘영’에 무지하여 ‘영혼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살다 죽는다.
30. 하나님을 알고, 시대 구원자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주를 따라 구원받고 휴거된 인생은 <육의 인생>도 평탄하며, <육의 마지막 길>도 평탄하며, <영의 영원한 길>도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다.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비밀을 알았으면, 그 일 처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을 최고로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
2. 지도자가 면담 후에 '상대의 비밀'을 알았으면, 자기만 알고 행해야 된다. 면담 후에 다른 사람에게 그 비밀을 말하면, 그 사람을 악평하는 격이 된다.
3. 개인 면담을 해서 '이성 죄 등 갖가지 죄'를 알았으면, 청소하듯 주께 고하여 없애 주는 일을 해야 된다.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깨끗하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 조심하라고 참고로 '그 사람이 죄지은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참고하게 해 주려면,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고 '비유'로 말해 주어야 한다.
4. 죄를 주께 고하여 회개하고 근신하고 있는데, 면담한 자가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버리면, 이는 '죄에서 살려고 기어 올라오는 자를 발로 차서 떨어지게 한 격'이다.
5. 주는 죄를 용서하면, 그 죄를 머리에 쌓아 두지 않는다. 이미 청소하여 없앴기 때문이다.
6. 누구든지 면담한 후에 '그 사람의 모순과 비밀'을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7. 입이 가벼우면, 그 입이 '휴지'가 된다. 휴지는 어디에 쓰냐. 코를 풀고, 밀을 닦는 데 쓴다. 입이 가벼운 자는 '휴지'와 같이 쓰인다.
8. <형제에게 해당되는 것>은 '그 형제'에게 고해서 없애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은 '주'를 통해 삼위께 고하여 없애는 것이다.
9. 죄는 자기 마음대로 지어 놓고서, 고하기만 하면 해결된다 생각하고, 편지 한두 장으로 끝내는 자들이 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자기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안 짓고 그 주관권에서 나오면서 고해야지, 입만 벌리고 고한다고 죄가 없어지고 해결되느냐. 죄를 소각해라. 멸해라. 씻고 없애라. 죄를 씻고 없애면서 주 앞에 나아와라. 더러운 몸과 더러운 옷을 두고, 주께 죄를 고하기만 하면 깨끗해지느냐. 깨끗하게 씻고 빨면서 주께 고하여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10. 섭리사 안에서 이성 죄를 지은 남녀가 계속 만나고 타락하면서 편지로 용서해 달라고 고한다. 어떤 자는 서로 상대가 없이는 못 사니 같이 살도록 축복해 달라고 한다. 참담하다.
11. <회개>는 '생각과 몸이 그 주관권에서 나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안 짓는 행실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로도 주께 고하는 것'이다. <말과 행실>로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가 상달되지 않는다.
12. 이성 죄를 지었으면, 당장 끊어라. 만나지 말아라. 다시는 타락하지 말아라. 깨끗하게 하면서, 주께 그 죄를 고해라. 그리고 근신하고 의를 세우면서 회개하는 것이다.
13. 죄를 그냥 두면 그냥 있다. 더러운 몸을 씻듯, 더러운 옷을 빨듯, <행실>로 고치면서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안 짓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말만 하면, 죄가 청산되어 깨끗해지느냐. '말과 행실'이다.
14. 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는 동일하다. <마음>만 원하고 <말>만 하고 실제 <행동>으로는 안 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돌 하나도 지구 세상 73억 명이 실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외치기만 하면, 1000년을 기다려도 그 자리에 있다.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명들을 살필 때는 한 번만 실수해도 죽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완벽하게 살피신다.
2. 절대적인 생명은 거의 손에 쥐고 다니신다.
3. 하나님이 써야 될 생명은 그 몸에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를 펴야 되기에 천군과 함께 절대적으로 살피신다.
4. 추우면 '따뜻한 곳'을 좋아하듯이, 힘들면 '위로자'를 좋아하며 찾는다.
5. 환난 때는 '숨을 곳'을 좋아하며 찾는다.
6. 영광을 받을 때는 '칭중'을 좋아한다.
7. 더우면 '시원한 곳'을 좋아하듯이, 찌들 때는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자'를 찾는다. 고로 개인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아라. 생명을 관리할 때는 항상 밀착하여 보고 속마음을 들어야 된다.
8. 사람들의 보고는 분석하고 참고하고 확인하기다. 다들 '자기 눈높이, 생각의 높이, 자기 사고의 수준'으로 보니, 사람들의 보고가 100% 다 완전하지 않다. 고로 생명들을 대할 때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사람들의 보고는 분석하고 참고하고 확인해야 된다.
9. <좋은 곳>을 주면, 깨닫고 좋아하고 감사하며 많이 누리며 살아야 된다. 답답하다고 그곳에서 나오면, 즉시 찬바람이 불어와 고생이다.
10.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줘도 자기와 안 맞다며 다시는 여기에 안 온다고 하고 나갔다. (특히 월명동에서 살았던 자들)
11. 좁은 성전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좋은 새 성전>으로 나왔으면, 깨닫고 감사하며 화목하고 선교하면서 많이 누리라. 빈자리를 가득 채워라. 그래야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다. 그 축복은 갓가지다.
12. <하나님의 새 역사>로 와서 주와 함께 살면, 깨닫고 감사하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많이 누리라. 답답하다, 힘들다 하면서 벗어나면 찬바람만 뽕뽕 불어온다.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최고의 장소를 주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가치>도 모르고 <보람>도 없고 <기쁨>도 <마음 흥분>도 없다.
2. 깨닫고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만 '이상세계'다.
3. 평생 지겹지 않고 미련 없이 좋아하며 살 곳은 첫째 '자기 고향'이고, 둘째 '자기 취향에 맞는 곳'이다.
4. 고향이 '도시'이면 지형만 남아 있지 거의 다 개발이 되어서 산도 내도 없어졌고, 높고 낮은 곳과 시골길도 다 없어졌고, 멀리 산만 그대로 남아 있는 곳들이 많다. 고향의 맛, 배경, 모양이 70~80% 없어졌으니, 어릴 때 보고 느끼던 것들이 사라져 고향의 느낌이 거의 나지 않는다.
5.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그리도 좋아하며 즐기던 곳이라도 자기가 성장하여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면, 점점 '만족도'가 낮아지고 '정'이 떨어지고 '호기심'도 사라진다. 결국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6. 어떤 사람은 환경을 옮겨도 만족하려면 끝이 없다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마다 보고 끝내기도 한다.

7. <소나무 작품>이나 <돌 작품>도 한때는 자기가 좋아하여 사고, 선호하며 즐기다가도 ‘자기 생각이 성장’하면 만족이 없어진다. 그러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마음과 생각이 뒤바뀌게 된다.
8. 그러나 <자기가 키운 소나무>나 <자기가 발견하여 얻은 돌>은 ‘자기의 정성과 사연’이 들어가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 마치 ‘자기 자녀’가 더 좋고 ‘자기 사랑하는 자’가 더 좋은 격이다.
9. 사람도 ‘옆에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이미 정들고 사연 있는 사람’이 더 좋다.
10. 고향도 그러하다. ‘다른 사람이 사는 곳’이 더 좋지만,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고 큰 곳이라서 배경을 안 따지고 좋아한다. 그런 곳을 개발하면 ‘천국 환경’이 되니, 더 좋다.
11. 음식도 ‘평생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한때 선호하는 음식’이 있다. ‘한때 선호하는 음식’은 식성이 바뀌면 멀리하게 된다.
12. 사람도 ‘평생 좋아하는 체질의 사람’이 있고, ‘한때 자기 차원으로 좋아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다.
13.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그리 좋아하며 갖고 놀다가도 성장하면 스스로 장난감을 버리듯이, 어렸을 때 그리 좋아하던 사람도 자기가 성장하면 스스로 버린다.
14. <자기 성장의 차원>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이 달라진다.
15. 자기 고향이 보다 못한 환경이라도 나무도 키우고 개발하여 계속 좋게 만들면, 만족하고 살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16. <고향>도 개발하니 좋아하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고 <자기 자신>도 그러하다.
17. 어릴 때 그린 그림을 커서 봤을 때 만족이 없으면, 성장한 생각으로 개발하여 그리면 된다. 그러면 만족한 그림이 되어 버리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된다.
18. 하나님께서 <하늘 사연, 땅의 사연이 있어서 주신 것>은 다른 것보다 못해도 ‘평생 좋은 것’이고, ‘만족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깨닫고 알아야 된다. <자기 생각>의 차원이 낮고 무지하면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주신 것’을 가치 없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그리 귀하지 않고 만족하게 생각되지도 않는다.
19. 깨닫고 알기다. 모르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혈값’에 팔게 된다.
20. <자기 생각>에서 ‘가치와 만족’을 깨닫지 못하여 가치를 상실하면, ‘귀한 보화’도 ‘귀한 사람’도 잃게 된다. 잃었어도 <자기 생각의 차원>으로 ‘그보다 못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산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이라도 ‘예전에 자기 수준과 차원에 맞춰서 주신 것’은 자기가 자꾸 성장하면서 보면, 아무래도 만족이 떨어진다. <자기>가 그만큼 컸으니, 현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자기 역사의 유물’이며 ‘기념물’이다.
22. 선생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소나무가 있었다. 커서 어른이 되니 사고도 생각도 달라졌고, 그러니 그 소나무보다 다른 소나무가 더 좋았다. 그러나 그 소나무도 컸고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사연이 있으니, <사연 값>으로는 그 소나무가 더 나았다. 그리고 그 소나무도 잘 커서 여전히 좋았다. 그래서 월명동에 갔다 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좋아하며 만족했다. 어렸을 때 택해서 좋아하던 소나무인데 ‘사연’과 함께 <하나님 영광의 전>에 갖다 놓으니 ‘사연 솔’이 되었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만족하셨다. 이 이치로 <모든 사람들>도 다 귀히 보고 대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람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여라. © 이제 오늘 잠언들에 이어서 잠언 하나가 남았는데, 그것은 잠언이라기보다 ‘하나의 긴 사연 이야기’입니다. 그 사연은 내일 새벽에 전해 주겠습니다.

다.

<2017년 2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23. <내 고향 월명동은 개발 전>에는 너무 싫어서 밟기도 싫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때 내 고향에서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살았기에 그렇게도 버리고 떠나고 싶었을까? 먹을 것도 없었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도 1월이라도 돈 벌 일도 없었다. 또 도시에서 파는 것들과 먹는 것들이 1000가지나 넘는데, 월명동에는 하나도 없었다. 과자 하나도 파는 곳이 없었다. (여기서부터 선생님 초안) 하루는 선생이 ‘바싹 마른 보리 짐’을 짊어지고 가는골 산을 넘어서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보리 짐은 ‘70kg’이나 되었고, 그 짐은 ‘등 전체와 머리까지 뒤덮을 정도’였다. 게다가 오는 길은 ‘질퍽한 논두렁길’이었고, 그 길은 ‘20m’나 되었고, ‘손바닥만 한 작은 길’이었다. 논 주인이 논두렁에 물이 새어 들어가지 못하게 진흙으로 논둑을 높여 놔는데, 그곳을 지나가다가 진흙을 밟으면 미끌미끌해서 ‘빈 몸’으로도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다. 혹여나 짐을 지고 오는 길에 넘어지면, 2~3m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논 주인도 ‘논둑’을 세우고는 간신히 논으로 빠져나왔다. 지금의 문화관 장소다. 그런데 이날은 ‘바싹 마른 무거운 보리 짐’을 한 짐 가득 짊어지고, 가는골에서 산을 넘어와서 꼭 그 논두렁길을 거쳐 가야 했다. 그 무거운 보리 짐을 짊어지고 외줄 타기 하듯 작대기를 짚고 오다가 그 논두렁길을 도저히 지나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서서 생각을 했다. 만일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논두렁 아래로 떨어져서 물에 처박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다. 짐을 지고 생각하면서 서 있으니, 다리가 저려 왔다. (여기까지 초안 보여 주기) 결국 벼를 심어 놓고 물을 채워 놓은 논으로 들어갔다. 신발은 검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눈에 물이 채워져 있으니 발이 안 빠져나왔다. 그래서 고무신을 벗고 맨 발로 걸었다. 20m를 걸어야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쉬지도 못했다. 벼가 심어져 있으니 벼를 안 밟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 벼 사이로 갔다. 그래도 도저히 벼를 안 밟을 수 없었다.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등 뒤에서 머리까지’ 잔뜩 지고 있으니 내 생각대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어깨가 너무 짐에 눌러서 감각도 없었다. 또 6월이라 찜통더위였다. 한참을 힘들게 걸어 나오다가 얼마나 남았는지 앞을 쳐다보니,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했다. 반도 못 나왔는데, 힘이 쭉 빠졌다. 화가 났다. ‘내가 이 논을 사서 길을 만들 거야. 이것 외에는 내가 이 고통을 벗어날 길이 없다. 내가 이 땅을 꼭 살 거야. 내가 사서 기뻐하며 다니는 길로 만들 거야.’ 했다. 그러니 힘이 왔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자. 이곳만 빠져나가면, 논두렁 진흙 발라 놓은 곳에서 쉬자. 여기서 잘못해서 논두렁 뒤로 넘어가면 2m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다. 그런데 ‘벼를 심어 놓고 물을 채워 놓은 질퍽한 논’이라서 한 발자국을 디딜 때마다 발이 논으로 푹 들어갔다. 게다가 70kg이나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밟으니, 발이 30cm나 푹 들어갔다. 발이 ‘논바닥 끝까지’ 들어가면, 그제야 다음 발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다음 발이 또 ‘논바닥’까지 쑥 들어간다. 이것은 ‘스릴’이 아니라 ‘기절하는 느낌’이었다. 발이 ‘논바닥’까지 쑥 들어갔는데, 다시 꺼내서 발을 바꿔야 하니 그게 더 문제였다. 논바닥까지 들어간 발을 물에 잠긴 눈에서 빼 올릴 때, 한 발에 힘을 주니 더 쑥 들어갔다. 장판지가 안 보일 정도로 깊이 들어갔다. 짐도 너무 무겁고, 다리도 무겁고, 힘이 다 빠져서 쉬고 싶었지만, 쉬면 ‘등에 지고 있는 지게의 두 발’이 뽕족하니 ‘물이 찬 논’으로 쑥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게의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진다. 그래서 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판단하고 계속 힘들게 기진맥진하여 기진맥진한 채 계속 힘들게 걸어 나오는데, 보리 짐이 내 등에 있는지, 내 어깨에 뻐는지, 무감각해서 못 느낄 정도였다. 천 리를 걷는 것같이 힘들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온갖 힘을 다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듯, 나도 살기 위해 험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월명동에서 살고 싶었겠냐. <떠나는 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알고, 고통을 피하려고 월명동을 떠나려 한 것이다. 갇은 몸부림을 쳐서 맨발로 지게를 지고 걸어 나와서, 즉시 논두렁 너머에서 냇을 놓고 쉬었다. 일생에 그렇게 보리 짐을 지고 고생한 날이 없었다. 한 시간은 더 쉬고 싶었지만, 낮이라 논 주인이 와서 보면 큰일 나니 바로 일어났다. 이제 논바닥에 박힌 신발을 찾아서 꺼내야 하고, 내가 밟은 발자국을 보면서 다 없애 주고, 밟은 벼를 파내서 물에 씻고 다시 심어 주는 일이 남아 있었다. 다시 논으로 들어가서 어느 구멍에 내 고무신이 박혔는지 한참을 보다가 찾아서 꺼내고, 신발은 논 밖에 던져 놓고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구멍 뚫린 발자국을 메우고, 발로 밟아서 논에 묻힌 벼를 파내어 물에 씻어서 다시 심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오늘 죽을 고생 했어요. 별짓을 다 하고 이를 갈면서 왔어요. 어머니도 당해 봤지요? 그곳은 출입구가 없는 맹지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딴 길이 없어요. 내가 기어코 그 땅을 사서 길을 낼 거예요.” 하면서 푸념했다. 월명동에서 이런 고통을 수십 가지로 받으며 살았으니, 그곳이 내게는 ‘저주의 골짜기, 지옥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였다. 고로 거기서 나가기를 그리 원했던 것이다. 월명동 지역은 ‘높은 지역’이라서 꼭 급경사를 오르고 내려야 하는 곳이다. 그때는 인력거나 차가 올라온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 할 때였다. 감람산에서 나뭇짐을 지면, 그 급경사를 내려와야 된다. 무거운 짐을 등에서 머리까지 지고 내려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러나 먹고 살려면 꼭 해야 하는 일이었다. 또 그 급경사를 올라야 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다. ‘죄의 짐’을 져도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곳은 동네가 너무

높아서 짐을 지고 올라오고 내려와야 돼요. 또 높은 산의 중간 지점은 경사가 너무 심한 곳인데, 이런 곳을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려야 되니, 정말 힘들어요. 대전이나 공주처럼 넓은 곳 놔두고, 수만 군데 좋은 곳 놔두고, 왜 ‘바늘 끝 같고 산봉우리 같은 이곳’에 왔어요? 왔더라도 조금 살다가 나가지요.” 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야기해 주셨다. “아버지도 아홉 살 때까지 공주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왔다. 할아버지가 정치를 하다가 명성황후가 죽는 것을 궁궐에서 보고 충격 받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고향 공주를 놓고 이곳으로 피난 와서 숨었다. 그때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광산 일’을 하며 금을 많이 캐는데, 한때는 ‘황금 시대’였다. 이곳에 열다섯 가구 이상이 살았고, 일본 식민지 때는 ‘금 캐는 광부 동네’였다. 잘 먹고 살았던 곳이다.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의 삼형제가 같이 살았다. 모두 결혼해서 부인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다. 우리 가족도 열다섯 명이 넘었다. 지금은 떠나고 ‘네 가구’만 살고 있지만, 한때는 떠들썩한 골짜기였다. 골짜기 곳곳에 집터와 논과 밭을 만들어서 살았다. 우리 집의 아랫집에는 부자도 살았다.” 하셨다. 이 같은 시대를 거치고 개발하여 월명동은 ‘하나님의 대자연성전’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 ‘이 지옥 같은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개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이 같은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생>도 그러하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히 지겹지도 않고, 싫증도 안 나고, 기대에 어긋남도 없는 존재자’이시다. 그와 같이 영원히 지겹지 않게, 싫증 나지 않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면 ‘삼위를 절대 섬기고 사랑하며, 절대 그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며, 자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부족’으로 인생도, 신앙의 삶도 지겹고 싫증도 느끼고 싫어진다. <자기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 행하신다!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세월>도 오고 가고, <생명들>도 오고 가고, <만물들>도 오고 간다.
2.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오고 가신다.
3. <주>도 오고 간다.
4. 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다 좋아하면, 서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싸우니 존재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이 ‘개성’대로 좋아하고 기뻐하도록 인간의 뇌를 창조해 놓으셨다.
5. 새 시대, 새 사람, 새 역사다. 구시대인들은 살던 집과 건물을 팔고 새것을 사려니 늦어서, 새 시대를 사고 새 시대에서 살기 어렵다. (한 건물을 두고 기성 교회가 사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본 교회를 팔고 새 성전을 사야 하니 늦어서 안 된다.)
6. <집 없는 자>가 돈이 부족해도 ‘새 집’을 사게 된다. 집이 없으니, 사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7. <집 있는 자>는 ‘새 집’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새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혹은 사려고 해도 살던 집을 팔고 사야 하기 때문이다.
8. <집 없는 자>는 집 사는 것을 계획하고 적게라도 돈을 모아 뒀기에, 새 집이 나오면 바로 살 수 있다. <집 있는 자>는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 새 집이 나와도 자기 집과 비교해 보다가 늦고, 새 집을 사서 이사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집>도 그러하다. ‘구시대에 살고 있는 자’는 새 시대를 발견해도 구시대를 나와서 새 시대에 와야 하기에 오기 어렵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고, <성전 마련>도 그러하다.
9. <새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없으니 얻으려 준비하고, 성전만 보면 다 귀히 본다.
10. <이미 성전을 산 교회>는 ‘새 성전’이 있어도 사기 어렵다. 기존 성전을 팔아야 되고, 또 기존 성전 가까이에 자기 집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살이 하는 교회>는 때가 되면 나가야 되니, 준비했다가 ‘새 성전’이 나오면 바로 사게 된다.

11.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하다. <기성>은 이미 구시대에 자리를 잡고 사니, ‘차원 높은 새 역사’가 와도 기존의 것을 벗어 버리고 새 역사로 나오기 어렵다. 고로 <새 시대 새 역사>는 ‘새 사람’에게 돌아간다.

12. <먹을 때>는 ‘푸짐한 음식’이 좋고, <싸 갈 때>는 ‘가벼운 음식’이 좋다.

13. <상대 예정>은 유동성이 있지만, <절대 예정>은 유동성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건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섭리사에 주시려고 절대 예정해 놓으셨다. 고로 모두 힘을 모아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14. <새 시대를 기다리고 예비한 자>만 ‘새로운 세계 이야기’를 해 주면 따라오게 된다.

15. <구시대인들>은 이미 ‘이전 구시대’나 ‘이방’에서 <새 시대라 하는 역사>를 만나 살아가고 있으니, 또 <새 시대>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간다.

16. <새 시대>를 따르는 것도 ‘자기 삶의 시대의 때’가 있다. 해 저무는 데서 서성대고 있는데, <새 시대>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겠느냐. 거기서는 ‘갈 길’만 보이는 것이다. ‘구시대’가 그러하다.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알아야 된다.

2. <받는 자>가 깨닫지 않으면, 깨달을 자 누가 있느냐.

3. 일은 ‘몇 명’이 하지만, 쓰기는 ‘만인’이 쓴다.

4. <더 준비한 편>이 이기고 차지한다.

5. 겨루는 자와 실력이 같으면, 고통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6. 도전할 때도 ‘완전히 준비하고 도전하기’다. 가다가 부족하면 주저앉게 된다. 힘들어서 못 하게 된다.

7. 제대로 안 하면, 작은 것도 큰 것도 제대로 안 된다.

8.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것과 사람과 돈과 방법과 기구를 다 갖추고 시작해라. 시작했는데 하다가 없으면, 다시 내려와야 된다.

9. 예정된 자도 ‘갓출 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10. 한 번에 잘해라! 할 때 흥정과 계약을 동시에 하기다. 두 번째에 하려 하지 말고, 마치 산짐승 잡듯이 처음에 한 번에 잘하기다.

11. 산짐승을 한 번에 못 잡으면, 그 짐승이 뛰어 도망간다. 그때는 온 산과 온 대지를 다 누벼야 찾는다.

12. 글만 읽지 말고, 깨달아라!

13. 한 번에 잘하라는 말을 잊지 말고, 왜 한 번에 잘하라고 했는지 알아라. <그 기회>가 ‘한 번’이다. 그 기회가 지나면 시간도 더 들어가고, 돈도 더 들어가고, 더 힘들고 어렵게 된다.

14.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쉽게 되고 유익하게 된다.

15.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실패하고 안 되는 원인은 '제대로 못 해서'다.
16.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신 자의 생각'에 맞춰서 실천하기다.
17.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 뜻과 생각에 맞춰서 해야 이루어진다.
18. <얻는 것>이 문제고, 얻었으면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
19. 가령 '밭'을 샀으면, '농사짓고 잘하며 살아가기'다.
20. 얻고 나서 '편안한 쪽'으로 기울어 살면 그만큼 '실패율'이 높아지고, 얻고 나서 잘하는 데 신경 쓰면서 살면 그만큼 '성공률'이 높아진다.
21. <최선을 다할 때>만 '성공 길'로 가게 된다.
22. 하나님의 계획은 정녕코 이루어지지만, 인간이 제대로 못 하면 고생하면서 이뤄야 된다.
23. 인간이 모르고 행하면 하나님의 심정이 상하게 되고, 그 심정이 풀릴 때까지 인간에게는 고통 기간, 형벌 기간, 조건 기간이다.
24.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그리도 무섭다.
25. <하나님의 절대 법>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쉽고 가볍다.
26. <성약역사>는 '깊은 뜻 속에서 가는 자'만 해당되어 가는 역사다.
27. <성약역사>는 과거의 역사와는 '본질'이 다르다.
28.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라서 다 풀고, 행하고 실천하고, 성경을 이루고 가야 된다.
29. <성약역사>는 '집을 짓는 역사'다. '완성의 역사'다. '깨끗한 역사'다.
30.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셨기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줘야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고로 '받는 자'가 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갖추고 받아야 된다.
31. 첫 번째는 '그림자'이고, 두 번째는 '실체 몸'이다. 고로 두 번째에는 꼭 해야 된다.
32. <그림자>를 통해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로 인해 <실체 몸>을 맞고 받는 것이다.
33. <그림자>는 '세례 요한'과 같고 '구시대'와 같다. 구시대는 새 시대를 그림자가 비치듯 보여 준다.
34. 게으르면, 사냥할 것이 지나가고 난 후에 뒤쫓는다.
35. 게으르면, 늦게 안다. 늦게 한다.
36. 게으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몰라서 게으르게 되기도 한다.
37. 깨어 있어 그 날들이 '덧'과 같이 임하지 않게 해라.

38. 구름 사진을 찍는 자가 카메라는 집에 두고 무엇을 찍을지 보고 다니기만 하니, 구름 작품을 보는 순간 사진을 찍을 수 있겠느냐. 물건이나 어떤 것을 살 때도 ‘돈과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다녀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을 따라 산다.

39.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신의 생각’과 같아야 된다.

40. 허리끈을 졸라매고, 서서 먹고 뛰어라.

41. <작은 자>에게는 ‘크게’ 보이고 <큰 자>에게는 ‘작게’ 보이듯이, 교회의 인원수가 적으면 교회가 나와도 크게 보이고, 인원수가 많으면 교회가 작게 보인다.

42.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야 하나님이 ‘큰 교회’를 예비했다가 주신다.

43. 크게 해야 ‘큰 것’을 주신다.

44. 작게 하는 자에게는 ‘작은 것’이 만족하다.

45. 동시에 같이 해야, 빛을 잡듯 빨리한다.

46. 배우고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47. <하나님의 역사>는 배우기만 하는 학문의 역사가 아니고, ‘배우고 실천하는 역사’다.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극까지 생각이 차 있을 때는 영원히 안 변할 것같이 스스로 다짐하고 자기가 좋아서 결심하고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하며 실천한 것도, 가다가 ‘생각’이 바뀌면 ‘자기가 한 일’이 싫어지고 벗어나기를 원한다. ‘생각’이 바뀌면 다 변한다.

2. 사람의 생각은 변화무쌍하다.

3. <생각의 차원이 낮을 때 결정한 것>은 생각의 차원을 높이면 바로 뒤집어져서 좋아했던 것도 싫어하게 된다.

4. 옷은 옷걸이에 걸듯이 <생각>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걸어 놓고 실천해라. 그러면 앞날까지 내다보고 실천하니, 후회하지 않는다.

5. 아예 차원 높여서 하면, 성장해서 봐도 만족한다.

6. 어릴 때 사랑의 대상을 택하고 성장해서 다시 보면, 생각이 뒤바뀌어 만족이 없다. 이는 마치 어릴 때는 ‘장난감 차’에 만족하지만, 커서는 ‘실제로 타는 자동차’에 만족하는 것과 같다.

7. 어릴 때는 성장하지 못한 생각과 뇌 차원대로 선택하고 만족한다. 성장하든지 생각의 차원을 높이면 ‘어릴 때 택한 것’이 눈 아래로 보여 만족도 기쁨도 사라진다.

8. <이전에 택한 좋은 것>도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바로 생각이 달라진다.

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성장하고 때가 되어 선택하면, ‘성장기 때 선택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을 선택한다.

10.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만족하는 집’을 샀다. 그 집을 사고 돌아서 나오다 보니, ‘같은 값’에 ‘더 좋은 집’이 있었다. 그 즉시 기쁨도 희망도 사라졌다.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고로 ‘전체를 확인’하고 선택해야 되고, 육이 어른이라도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선택해야 된다.

11.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해라.

12. 종교 선택도 그러하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선택하면 ‘옛 종교’를 선택한다.

13.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종교를 선택하니,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종교, 만물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종교, 절대 신 하나님과 일체 되지 않고 돌, 쇠, 흙,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며 섬기는 우상 종교’를 택한다. 그래도 만족하며 섬긴다. 뇌와 생각이 체질이 되고 거기에 중독되면, 신상 앞에 절해야 기쁘고 흥분되고 신을 섬기는 것 같다고 한다.

14. 어떤 사람은 ‘한 동물’을 좋아하다가 정들어서, 동물과 연애하고 살면서 만족한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지역의 벽’을 사랑하여 그 벽과 사랑하며 살기도 한다. 뇌와 생각이 그쪽으로 체질이 되고 중독됐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우상’도 섬기는 것이다.

15. 이단에 속했어도, 자기가 좋으니 ‘거짓’도 ‘참’으로 보인다.

16. 인간의 뇌는 ‘맛을 느끼는 것’과 같이 작동한다. 기능만 달리 할 뿐이지, 같은 신경이다. 고로 ‘길들이는 대로’ 된다.

17. 사람이 나무나 돌이나 음식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만드는 대로’ 만들어진다. 뇌도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좋아하며 만족한다.

18. 어떤 사람은 냄새 난다고 싫어서 버리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여 먹고 즐긴다. ‘뇌가 생각하는 대로’다.

19. 종교도 그러하다. 이단이나 샤머니즘 종교는 ‘영혼의 구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섬기는 것’과 땅과 하늘 같은 차이가 나도, 그것을 선택한 종교인들은 ‘생각의 차원’이 낮고 ‘무지’하니, 계속 우상을 섬기고 샤머니즘 종교에 속해서 만족하며 산다.

20. <지능>과 <생각의 차원>대로 선택한다.

21.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을 선택하고 사는 것’을 보아라. 다 똑같지 않다. 천층만층이다. <생각의 차원>대로 집을 선택하고, <실력>대로 집을 짓고 산다.

22. <차원 높은 것>을 가르쳐 줘도 ‘실천’하지 않으면, 지능도 생각의 차원도 실제로 높아지지 않는다.

23.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지능이 높아진다. 생각만 하면 실속이 없다. <생각과 말>은 수준 높게 하지만, <실천>은 수준 낮게 하고 산다. 이런 자들은 실제로는 수준이 낮다.

24. <생각>을 잘못하면, <실천>해 놓고도 바로 후회한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에 맞춰서 ‘주와 함께’ 행해라.

26.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27. 사업할 때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28. 신앙생활 할 때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29. 건축할 때 <이론>과 <실제>가 다르면, 사고 나서 무너진다.

30. <차원 높은 생각>과 더불어 <차원 높은 실천>이다. 그래야 신앙도, 삶도 무너지지 않는다.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31. <좋은 것>을 택하고 기르기다. 바다에 가서 ‘좋은 고기’를 택하고 길러야지, 잘못 택하고 기르면, 아무리 먹이고
돕고 관리해 줘도 새우같이 구부리고 더는 안 크다. 고래 새끼냐, 새우 새끼냐, 상어 새끼냐, 꿀뚜기 새끼냐, 문어 새
끼냐, 오징어 새끼냐. 제대로 택하고 키워야 성공한다.

32. 사람도 ‘하나님이 옛적부터 예비한 자를 택하여 전도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브라함, 노아, 다윗, 솔로몬은 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택하신 자’다. - 만물도 그러하다.

33. 임금은 아들의 혼인 잔치에 온 자들을 모두 다 택하지 않는다. ‘예복을 갖춘 자들’만 택한다.

34.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아라. 다 택하였느냐.

35. 하나님이 택하시되, 다 ‘신부’로 택하였느냐.

36. 모든 곳을 다 ‘성지 땅’으로 택하였느냐.

37. 선택된 한계선이 있다.

38. 모든 자들을 다 ‘메시아’로 택하겠느냐.

39. 돌 하나를 사 와도 ‘하나님이 예비한 돌, 하나님이 선택하신 돌’을 갖다가 쌓는다. 그래서 표가 난다.

40. <선택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착같이 한다. 기어이 한다.

41. <선택된 자>는 삼위일체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사명을 한다.

42. <선택되지 않은 자>는 자기 심리로 열심히 하다가 한계가 되면 주저앉고 안 한다.

43. <선택되고도 안 하는 자>는 ‘자기 축복’을 뺏긴다.

44.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안 하면 안 된다.

45. <택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만 하다가 만다.

46. <택한 자>는 한 기간까지는 ‘우선권’이 있다.

47. <택한 자>도 때 늦으면 못 하게 된다.

48. 하나님은 택할 때, 예전에 선조들이 잘한 것을 보시고 그 후손 중에 택하신다.

49. 하나님은 합당하여 택하신다.

50. 한 나라의 주권자도 ‘그 시대에 합당한 자’인가 보고 택하신다. 택한 자라도 사명을 못 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니 심판도 하시고, 모두 다 드러내어 행한 대로 받게도 하신다.
51. ‘왜 하나님이 택했는데 저리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택했어도 ‘인간 책임’을 하는 자도 있고, 못 하는 자도 있다.
52. 한 나라의 주권자도 ‘충성하는 자’가 있고 ‘자기 유익만 위해 하는 자’가 있다. 결국 의인들이 하나님께 다 고하니,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신다.
53. 물건을 살 때나, 무엇을 선택할 때나, 사람을 선택할 때나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
54. 처음에는 제일 좋아서 택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 ‘더 좋은 것’이 나와서 후회한다. 고로 ‘하나님’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55. 성전을 살 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아서 사야 후회도 안 하고, 사연 있는 곳에 사게 된다.
56. <큰 것>만 선택하지 않았다. <작은 것>도 여건에 따라서 선택했다.
57. <선택한 생명>이라도 ‘시대 복음’을 가르쳐서 만들어야 된다.
58. <선택한 자>도 ‘시대 복음’으로 못 만들면, ‘선택 안 한 자’와 같다.
59. 섭리역사에 오는 자들은 거의 선택해서 오는데, 기르기까지 힘든 자도 있다.
60. 성경에서도 바다에서 ‘좋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릇에 넣으라고 했다. (마태복음 13장 47~49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61. 선택됐어도 저마다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다.
62. 작품도 ‘그중의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한다.
63. 돈이 있는 대로 선택하듯이, ‘자기 의’대로 선택된다.
64. <시대>에 따라 ‘종’으로, ‘아들’로, ‘신부’로 선택된다.

<2017년 2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떻게 깨달았든지 ‘목적’을 깨달으면 된다.
2. 어떻게 해서든 알고, ‘목적지’에 가면 된다.
3. 가령 하나님이 ‘어느 목적지’를 정하고, 이 목적지를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오라고 했다 하자. 각자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목적지’까지 오면 된다는 말이다.
4. 어떤 방법으로든 <목적>을 깨닫고 <목적지>까지 가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된다.

5. 새벽에 제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 늦어서 뛰어가고,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일어나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졸면서 교회에 갔다. 또, 집에서 나오는 방법도 어떤 사람은 대문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담을 넘어서 나왔다. 어떤 방법으로든 실천하여 '목적지'에 갔으니 모두 말씀을 듣고 기도했고, 목적지에서 실천함으로 '제2의 목적'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6. 한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불이 났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신속히 뛰쳐나왔고, 어떤 사람은 "누가 거짓말을 해?" 하면서 안 믿고 있다가 불이 문 쪽으로 치솟으니 그제야 창문으로 나와서 건물 밑에 있는 고수부지로 뛰어내렸고, 어떤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서 소방관에게 구조되어 살았고, 어떤 사람은 밖으로 안 나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물을 틀어 놓고 코를 막고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구조되어 살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이뤘으면 됐다.

7. <전도>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면 된다. 노래를 불러 주고 데려오든, 말씀을 증거해서 데려오든, 구경시켜 주며 데려오든, 데려와서 '시대 복음'을 가르쳐서 알게 하면 된다. 단, '이성으로 사귀며 자기 목적을 위해' 데려오면 안 된다. 어떤 방법이든 좋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을 이뤄야 된다.

8. 제대로 하여 생명을 데려오는 것이 '보기 좋고 멋있는 생명 구원'이다.

9. 자기 모순, 습관, 마음의 병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지만 '순리의 방법'으로 행해라.

10.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이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 했는데, 무리들 때문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그 집의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달아 내려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자 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다.

11.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면 된다.

12. <지혜>는 '방법론'이다.

13.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다 보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막히기도 하고, 상황이 돌아갈 때가 많다.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 '길'을 찾아서 하면 된다.

14. 모든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뛰어들기'다. 그러면 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성령께서 '길'을 내주신다.

15. <인간의 뇌 기능과 생각>은 어떤 일에 한 번 불이 붙이면, 그 일로 인해 불이 타 버린다.

16. <뇌의 기능과 생각>은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는 것과 같다. 떠날 때 층수를 누르면, 그 층으로 출발한다. 목적지를 향해서 기능을 하게 된다.

17.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것을 한 번 생각하면, 뇌가 그쪽으로 작동하며 기능을 한다. 고로 '생각'을 잘해라.

18. <뇌의 기능>을 알고 '생각'으로 잘 터치하여라.

19. <산 자>는 움직인다.

20. <산 지체>는 움직인다.

21. <신앙이 산 자>는 스스로 실천하며 움직인다.

22. <신앙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하고 관리해라.

<2017년 2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욕으로 들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다만 창조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 말없이 끌고 가신다.
2. 신은 ‘말’로 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을 위해 끌고 가신다. <깨닫고 아는 자>에게만 말씀하고 대화하신다.
3. 하나님이 사람같이 나타나시고 사람같이 말씀하시면, 사람이 절대적으로 사람을 못 다스리듯이 하나님도 인생들을 못 다스릴 것이다. 고로 사람같이 나타나시지 않고 사람같이 말도 안 하신다.
4. 사람도 나타나서 다스리면 더 잘 다스릴 것 같아도 신같이 숨어서 안 보여 주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두고 행하며 이끌어 가야 더 잘 다스리고 뜻도 잘 이룬다.
5.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말하고 보이면서 해야 할 것’은 그만큼 하기가 어렵다. 그때는 ‘그에 해당되는 사람’을 쓰고 행한다.
6. 하나님은 지구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말로 명령하지도 않는다. 다만 <깨닫고 아는 자>를 ‘자신의 몸’으로 삼고 ‘뜻’만 행하며 가신다.
7. 지구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주관권’이라서, 하나님은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않고 늘 쳐다보신다.
8.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 사랑하는 자를 쳐다보면서 모두 다 쳐다보신다.
9. 도자기가 있는데 말을 하고 만지나, 말을 안 하고 만지나, 행하는 자는 ‘자기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도 인생들 앞에 그렇게 행하신다.
10. <신>이 돼야 ‘신’과 통한다.
11. <인간으로서 신>이 돼야 ‘신’과 통한다. <인간으로서 신>이 되려면,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라.
12. <인간으로서 신>이 되려면 ‘육의 생각’과 ‘육성’을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영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13. <인간으로서 신>이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신과 같이 ‘속 세상’을 알게 된다.
14. <신령한 자>는 ‘신령한 생각’으로 분별한다.
15. <전능자의 생각>대로 따라서 하면, 인간과 세상의 차원을 떠나 ‘그 위의 차원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얻고, 누리고, 영광의 세계의 삶을 산다.
16. 인간의 차원에서 10년, 100년을 살아도 ‘전능자 생각의 차원에서 1년 산 것’만큼도 못 얻는다.
17. 사람이 ‘알고 하루, 혹은 순간에 행한 것’이 ‘모르고 10년 동안 한 것’보다 낫다.
18. <아는 자>는 ‘신’이다.
19. <신>에 대해 알고, <신의 생각>을 받고, 그 생각대로 <실천>해야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20. <신에 대해 모르는 자>는 ‘일반 사람’이다.

<2017년 2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좋은 사람도, 그 모양과 형상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도 ‘지식과 사고’가 잘못 들어가면 ‘가치’가 없어진다. * 설명 : 어떤 교수가 TV에서 미술 강의를 하는 것을 보고, 강의가 너무 수준이 낮아서 좋은 사람도, 멋있는 사람도 ‘그 사고와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다. 수준이 낮으니, 귀한 자들이 이런 것은 안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릇>은 좋은데, 그 그릇에 ‘하찮은 것’을 담는 격이 되어 <좋은 그릇>도 ‘하찮은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동네 꼬마들이 하듯이, 너무 재미없고 수준 낮은 것들을 한다.

2. <좋은 그릇>이라도 ‘하찮은 것’을 담으면 ‘하찮은 그릇’이 되고, <질그릇>이라도 ‘귀한 보화’를 담으면 ‘귀한 그릇’이 된다.

3. 섭리인들은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진리의 보화’다.

4. 저 기성인들은 <그 좋은 마음, 인생, 교회라는 그릇>에 ‘이미 지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담고 희망에 차서 기다리고 있다.

5. 변화해야 변화된다.

6. 피부를 좋게 하려고 ‘이 방법’을 썼는데 안 돼서 ‘저 방법’으로 변화를 줬더니, 피부가 좋게 변화됐다. 사람도 ‘이 사람’이 지도하고 관리했는데 더 이상적인 차원으로 변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도자 변화’를 줬더니, 새로운 지도자의 지도와 관리로 따르는 자들이 변화되었다. 따르는 자들이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면, 지도자를 교체해야 된다.

7.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퇴비’나 ‘온도’나 ‘관리의 변화’를 줘야 ‘변화’가 일어난다. 하던 대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8. 색이 특이한 동물을 보면, ‘먹는 것’에 따라서 그리된 것이다.

9. 한 화장품만 바르다가 다른 화장품을 바르면, 그 화장품의 성능이 얼굴에 새롭게 일어난다.

10. 관리도, 교육도, 각종 것도 ‘그 사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다른 자를 세워야 달라진다.

11.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변화’를 못 이룬다. 고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따르는 자들도 ‘변화’가 일어난다.

12.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는 섭리사를 나가지 않는다. 신앙이 병들어 점점 시들어 가면, 그때 ‘생명선’을 넘고 ‘사선(死線)’을 넘어간다.

13. 섭리사에 임시로 잠깐 있다가 나가는 자들도 있다. 이들이 섭리사에 있는 동안, 그 발판을 통해서 ‘섭리사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남아 있을 자들’이 오기도 한다.

14. 자기 사고, 근성,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고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섭리사를 떠난다.

15.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사고와 생각에 따라서 섭리사를 나간다.

16. 매일 네 생각을 100%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살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옷은 옷걸이에 걸듯이, <네 생각>을 <하

나님>께 걸어 놓고 살아라.’ 했다.

<2017년 2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만물은 만들어 놓으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은 만들어 놔도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질된다.
2. 만들어 났어도 매일 변질되지 않게 해야 된다.
3. 전에 하나님과 주 앞에 충성했던 자도 변하여 ‘자기가 원수시했던 악 편’으로 가서 옳다고 하며 산다.
4. 인간은 만들어 났어도 또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면, 그 세계로 변질돼 버린다.
5.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시인하고 구원받고 잘 지내다가도 점점 신앙이 변해서 세상으로 나가 ‘악 편’이 좋다 한다. 무기력 속에서 구원을 뺏기고 변질되어 사는 자들이 지구 세상에 수억 명도 넘는다. 그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 삶이 체질이 되어 더 좋기 때문이다. 구원이나 영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산다.
6.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얻고 감사하며 살던 자들도 점점 기도하지 않고 육성으로 살다가, 결국 ‘육성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서 그 삶을 살게 된다.
7. 육신은 매일 영에 속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매일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다.
8. 전에 백년간약을 맺고 맹세하며 사랑했던 자들도 가다가 변하여 이혼하고, 서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 여자 없이, 남자 없이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한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처음에는 기뻐 뛰며 주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던 자들이 자신도, 관리하던 상대도 점점 관리하지 못하면서 떠난다. 이렇게 1년이면 수천 명씩 나간다.
9. 전도할 때는 연애하듯 애간장 태우며 한 달, 두 달, 세 달 희망으로 관리한다. 그렇게 해서 주를 알고 따르게 한다. 전도된 자도 처음에는 좋아하고 기뻐 뛰며 주를 시인하며 살다가, 1~3년 사이에 <자신>이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여 나가고, 혹은 <관리자>가 제대로 ‘말씀’을 못 넣어서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한다.
10. <사고, 생각>이 변하면, 주의 품을 떠나 나간다.
11.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의 방향’을 따라간다.
12. <말씀>으로 ‘생각’을 잡지 못하면, ‘육’으로는 안 된다.
13. <하나>를 신으로 삼지 말아라. <전체>를 신으로 삼아라.
14. 머리는 ‘모든 지체’를 개성대로 대해 줘야 된다. ‘한 지체’만 잘 대해 주면 ‘그 하나’에 빠져서 ‘수만 분의 1’만 유익하게 된다. - 이를 두고 ‘<하나>를 신으로 삼지 말고 <전체>를 신으로 삼아라.’ 한 것이다.
15. <하나>에게 ‘하늘 사랑’을 다 주면 가치도 모르고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으로 흐르게 된다.
16. <한 사람의 땅>에만 계속 비가 오면, 오히려 ‘곡식 농사’를 망치는 격과 같다.
17. <육적 관리>만 되면 <혼과 영 관리>가 안 되어 쓰러진다.
18. <이성과 자기 근성을 못 끊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걸려서 육과 함께 그 영혼이 ‘사망의 그늘’에 있다.

19. <육>이 1000년을 살아도 온전히 살아야 <영>이 온전한 세계에 간다.

20. <미완성된 영>은 ‘미완성의 세계’로 간다.

21. <휴거됐다 한 영>도 ‘육이 전심으로 할 때’ 휴거됐으며, 혹은 ‘주의 공적’으로 휴거된 것이다. 휴거된 이후에 <육>이 ‘휴거의 삶’을 살지 못하면, <영>이 ‘온전한 휴거 세계’에 거하지 못한다.

22.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여호와를 대하는 대로 대해 주리라.” 하셨다. “<더러운 삶>으로 나를 대하면 나도 ‘더러움’으로 대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면 나도 ‘깨끗함’으로 대한다.” 하셨다.

23. <100% 온전히 하는 자>만 ‘미래의 휴거’에 마음이 놓인다.

<2017년 3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부분적으로 아니, 확실히 모르는 것이다.

2.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정확히’는 모른다.

3.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행할 줄 아는데 ‘정확히’ 행할 줄 모른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4. <책의 주변>은 아는데 <책>을 모른다.

5. 성경도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확실히’는 모른다. 주인이 아니라서 모른다.

6. 꿈을 꾸고 나서 ‘어떤 꿈’인지는 아는데, ‘확실히 어떤 뜻’인지는 모른다.

7.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행하는데 ‘확실히’는 행하지 못한다. 생명 관리도, 강의도, 설교도 그러하다.

8.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기>는 쉽지만, <확실히 알고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9. 시험을 봐도 ‘부분적으로 쓰기’는 누구나 한다. ‘확실히 다 답을 쓰는 자’는 드물다.

10.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부분적’으로 알지, ‘확실히 아는 자’가 없다. <확실히 아는 자>가 ‘머리’요, ‘주인’이요, ‘주’ 이시다.

11. 자기 병도 ‘부분적’으로는 낫게 하는데 ‘확실히 낫게 하기’가 어렵다.

12. 운동도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전체를 위해 확실히 하기’가 어렵다.

13. 자신의 삶도 ‘부분적’으로는 사는데 ‘확실히 알고 사는 자’가 적다. 확실히 알고 사는 자가 귀하다.

14. 성경을 보면 예언도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나, <주>가 오면 그때는 ‘확실히 알고 행한다.’ 했다.

15. 시대 말씀은 시대에 따라 그때마다 ‘확실히’ 알려 주었다. 행하기만 하면 된다.

16. 관리도 부분적으로는 다 한다.

17. 머리 되는 ‘주’가 말해야만 확실히 말해 준다.

18. 머리 되는 ‘주’가 말하지 않으면, 지체인 ‘대상들’은 100% 확실히 알고 행할 수가 없다.
19. <확실하게 알고 확실히 행하는 자>가 ‘휴거 차원을 높인 자’다.
20. 기성은 <부활, 휴거, 재림, 말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아는데 ‘확실히’는 모른다. 고로 추측하고 산다.
21. 확실히 모르면 ‘확실히 알고 따르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새 역사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기성인들은 이 역사를 기다렸으나 ‘부분적’으로 알고 행함으로 못 맞았다.
22. 항상 <확실하게 아는 자>만 알고, ‘역사’를 이루었다.
23. <부분적으로 아는 자>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지 못한다.
24. 무엇을 잡아도 ‘부분적’으로 잡으면, ‘완전히 잡은 것’이 못 된다.
25. <부분적으로 관리>하면, ‘한 생명’도 관리할 수 없다.
26. 글을 쓰라고 하면, 다 쓴다. 그러나 ‘확실하고 온전하게 쓰기’가 어렵다.
27.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다 그린다. 그러나 ‘온전하게 그리기’가 어렵다.
28. 설교를 해 보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다 한다. 그러나 ‘온전히 잘하는 자’가 드물다.
29.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확실히 하는 자>만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다.
30. 예언도 ‘부분적인 예언’은 다 한다. <부분적인 예언을 하는 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한다.
31. 확실히 “있다. 없다.” 하는 자가 <확실히 알고 예언하는 자>다.
32. 주를 놓고도 ‘부분적으로 아는 자’, 혹은 ‘확실히 아는 자’ 두 편으로 갈린다. 너는 어느 편에 있느냐.
33. 일을 할 때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는 자’와 ‘확실히 알고 하는 자’ 두 편이 있다.
34. 방 안의 해충도 ‘부분적으로 잡기’는 쉽다. ‘100% 확실히 다 잡기’가 어렵다.
35. 어떤 일을 시켜도 ‘부분적으로 하기’는 쉽다. ‘확실히 하기’가 어렵다. 지도자들을 보면, 모든 면에서 다 잘하지 않는다. 잘하는 것은 잘하는데, 못하는 것은 정말 못한다.
36. 삼위일체와의 교통과 대화도 ‘부분적’으로는 다 한다. ‘확실히’ 하기가 어렵다.
37. <확실히 온전히 하는 자>만 ‘금메달리스트’다.
38. 방 안에 모기 한 마리가 확실히 있는데, 모기약을 많이 뿌려도 모기가 죽은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실히 죽었는지 모른다. (성령께서 실제로 행하여 겪어 보게 하고 주신 잠언)
39. <확인한 자>만 ‘확실히 한 자’다.
40. 성령과 주와 ‘부분적으로는 동행’한다. 그러나 ‘온전히 동행하는 자’는 드물다. 온전히 하는 자는 ‘금메달리스트’다.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새벽 잠언>

41.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는 자>는 많으나 <온전히 알고 행하는 자>는 드물다.
42. 월명동 지역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는 거의 다 안다. ‘온전히 아는 자’는 섭리사에서 한 명이다. ‘온전히 알기’가 어렵다. 그 한 명도 ‘하나님이 아는 만큼’은 다 모른다. 섭리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안다는 것이다.
43. <온전히 알고 하는 것>이 그리도 어렵다.
44. 자기 할 일도 ‘부분적’으로 95%, 90%, 85%, 80%, 75%, 70% 선으로 하지, 100% 온전히 알고 행하는 자는 극히 적다. 그러니 ‘온전히 아는 주’가 가르친다. 주께 배워야 온전히 알고 차원을 높인다.
45.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면, ‘부분적’으로만 된다.
46. 말도 표현도 ‘부분적’으로는 모두 할 줄 안다. <100% 온전히 하는 자>가 아주 드물다.
47.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잘한다. <전체를 제대로 잘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48. 자기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100% 온전히 하기’가 그리 어렵다.
49. 시간도 ‘부분적’으로는 지킨다.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다.
50. 기도도 감사도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온전히 하기’가 어렵다.
51. <온전히 하는 자>만 가면서도 문제가 안 생기고 형통하게 된다.
52. 부분적인 것에서 더욱 ‘온전히 하는 데’ 힘써라. 하면 다 된다.
53. 방 안의 모기 두 마리를 봤다. 한 마리를 잡았는데 다른 한 마리는 안 보여서 모기약을 뿌렸더니, 모기가 숨어 있다가 날아다녔다. 그때 잡았다. 잡아서 죽은 것을 확인하니 확실했다. 성령님은 “이같이 온전히 하면 된다.” 하셨다. 모기약은 ‘기도’와 같다. 기도해야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다.
54. 시를 써 놓고, 글씨와 문맥이 맞는지 열 번, 스무 번 확인하면 내용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
55. 이를 닦는 하찮은 일도 ‘부분적으로 닦는 사람’은 많다. ‘확실히 닦기’가 어렵다. 100번 이상은 칫솔질을 해야 바깥쪽, 안쪽, 하나의 이도 안 빼놓고 온전히 닦는다.
56. <배고플 때 밥 먹듯 하는 자>는 ‘온전히 하는 자’다.
57. <잠 올 때 잠자듯 하는 자>는 ‘온전히 하는 자’다.
58. <신발 신듯 하는 자>는 ‘온전히 하는 자’다.
59. <바늘에 실을 꿰듯 하는 자>는 ‘온전히 하는 자’다.
60. 바늘에 실을 꿰 때, ‘부분적’으로 꿰서 쓰는 자는 없다. 부분적으로 실을 꿰면, 아예 바느질이 안 되기 때문이다.
61. <배설물을 버리듯, 쓰레기를 소각하듯 하는 자>는 ‘온전히 하는 자’다.

62. <차를 타듯 하는 자>는 ‘온전히 하는 자’다.

63.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는 자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해를 받게 된다.

64. 사탄도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는 자들’에게 ‘나머지 못 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조건을 걸고 들어와서 그만큼 ‘해’를 준다.

65. 무엇이든지 ‘부분적’으로 하면 ‘나머지 못 한 것’에서 문제가 생겨서 손해가 되고 해를 받게 된다.

66. 표현도 ‘부분적’으로는 하는데 ‘온전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67. 어떤 일이든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온전히 해 보아라. 반복해서 하고자 하면 된다.

68. 전쟁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다가 패한다.

69. 온전히 행할 때, 온전히 얻고 온전히 기쁘다.

<2017년 3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70. 하나님도 ‘남자’를 보고 ‘남자’라고 아시고, 나도 ‘남자’를 보고 ‘남자’라고 안다. 동등하게 아니, 정말 기쁘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으로서 창조자같이 알기를 원한다. 무지를 벗어나서 온전히 알아라. 성경에 ‘하나님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것같이 너희도 나 여호와와 같이 온전히 알아라. 온전히 알고 행해야 나와 통한다.” 하셨다.

71. 하나님같이 온전히 알아야, 아는 만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시대의 뜻’을 펴 나가신다.

72. 하나님도 ‘지구는 하나’라고 아시고, 나도 ‘지구는 하나’라고 동등하게 아니 기뻐다. 고로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이 또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으니, 머리도 안 아프고 그쪽으로 수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이 또 있다고 하는 자’는 그 넓은 우주에서 또 찾고 연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평생 인생을 투자해도 못 찾는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은 ‘고통’이 많다. <하나님이 온전히 아시듯 하나님과 동등하게 온전히 아는 자>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와도, 결국은 모두 ‘기쁨과 보람과 축복의 세계’로 뒤바뀐다.

73.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지구 외에도 우주에 지구 같은 별이 또 있다고 하며 우주를 돌아다니며 찾는 자’와 같다.

74. <온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은 매일 궁금해하며 답답하게 살아간다.

7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온전히 아신다. 삼위가 보낸 자와 일체 되면 온전히 알게 된다.

76. 부분적으로는 모두 다 할 줄 안다. <온전히 알고 하는 자>가 돼야 ‘인간으로서 신 같은 자’다.

77. <온전히 알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폐하게 된다.

78. <주>가 오시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폐한다.

79. <부분적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이루려고 하는 창조 목적의 뜻 ‘휴거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그는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80. 삼위는 ‘온전히 아는 자’에게 강림하여 ‘뜻’을 이루신다.
81.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지 못하다.
82. 부분적으로 찾으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못 찾아낸다.
83. 100군데가 있는데, 그중의 한 곳에 ‘보화’가 묻혀 있다 하자. 부분적으로 파 보고서는 ‘보화’를 못 찾는다. 100군데를 다 파 봐야 ‘보화’를 찾는다.
84. 월명동에서 크고 있는 소나무들 중에서 ‘제일 큰 소나무’를 찾으라고 했다. 몇 명을 월명동에 보내도 ‘자기가 본 소나무’가 제일 크다고 했다. 결국 한 사람을 시켜서 10개의 산을 한 달 동안 온전히 누비며 다 보게 했다. 결국 ‘제일 큰 소나무’를 확실히 찾았다. 이와 같이 ‘온전히’ 행해야 ‘온전히’ 안다.
85. <온전히 안 자>만 그것에 대해 ‘온전히’ 기쁘다.
86. 병도 온전히 낫지 않으면, 또 발병되어 아프다.
87. <온전히 안 자>가 ‘주인’이 된다.
88.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은 정말 귀하다. ‘지구상에 둘도 없는 것’이라고 온전히 알 때, 그것에 대해 온전히 기뻐하게 된다.
89. 사람도 ‘지구상에 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온전히 알 때, 온전히 귀하게 여기며 기뻐하게 된다.
90. <다시 오시는 주>도 ‘한 명’뿐이다. <너의 죄를 대속하고 너를 구원하고 휴거시킬 주>가 ‘한 명’뿐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펼 역사>도 ‘하나’뿐이다. <귀한 육의 인생을 가지고 너의 육과 영을 휴거시킬 몸>도 ‘너 하나’뿐이다. 이를 온전히 알 때, 온전히 뜻을 이루고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2017년 3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91. 두 가지 다 설명하고 표현해야 온전히 표현한다.
92. 축소와 확대로 두 가지 다 찾아야 온전히 찾은 것이다.
93. 두 가지 다 존재해야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94. 항상 ‘두 가지’가 ‘짝’이 되어 존재한다. 그리함으로 ‘온전함’을 이룬다.
95. 육과 영 두 가지, 하늘과 땅 두 가지,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오른쪽과 왼쪽 두 가지, 위와 아래 두 가지, 축소와 확대 두 가지 등 <두 가지>가 ‘짝’이 되어 존재한다.
96. 월명동에도 ‘남성 상징 바위, 여성 상징 바위’ 두 가지가 있다.
97. 월명동에는 ‘남성 산, 여성 산’ 두 가지가 있다.
98. 자기를 ‘온전히’ 만들어야 ‘온전히’ 살게 된다.
99. <자기>도 온전히 만들고, <따르는 자들>도 온전히 가르쳐라.

100. 온전히 알고 대해야 온전히 통하고 하나 된다. 사람도, 만물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그러하다.
101. 부분적으로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쓰여진다.
102. 이 시대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줬으니, 온전히 알고 행하면서 온전히 전해라.
103. 온전히 알아야 온전한 것을 찾는다.
104. 황금성 천국도 ‘온전히 알고 행하는 자의 영’이 가게 된다.
105. 온전히 찾기, 온전히 알기, 온전히 행하기다. 그래야 온전히 얻는다.
106.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면, 독사에 물리듯 일을 당한다.
107. 하나님은 <과정 중>에는 ‘부분적’으로 하계 하시다가 <절대적 목적을 이룰 때>는 ‘온전히 아는 자’를 보내서 온전하게 뜻을 이루신다.
108. <역사의 주인>이 와야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밝힌다. 그가 몸소 이루면서, 온전하게 밝힌다.
109. 어렸을 때는 부분적으로 행하다가, 크면 온전히 행한다.
110. 부분적으로 알고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
111.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마치 ‘열 개의 성분이 있는데 그중의 네 개만 알고 경계하는 것’과 같다.
112.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는 자>는 ‘절대적인 곳’에는 쓰일 수가 없다.
113.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는 ‘절대 온전히 알고 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신다.
114. <부분적으로 알 때>는 ‘발에 감춰진 보화’를 찾지 못했다.
115. <부분적으로 알고 행할 때>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116. 음식도 부분적으로 만들면, 맛이 보통이다.
117. 생명 관리, 강의, 교육도 ‘온전하게 하는 자’가 없으니, 교회마다 온전히 가르치지 못하여 ‘생명이 유실’된다.
118. 사업도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면 ‘실패’한다.
119. 종교인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펴고 계셔도 모른다.
120. 월명동 자연성전 돌 조경도 ‘부분적으로 알고 쌓을 때’는 무너졌다.
121. 돌 조경이 다섯 번째까지 무너졌다. 쌓는 자는 몰랐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보좌 형상>으로 온전히 쌓으니 여섯 번째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122. 지난날 ‘부분적으로 알고 행한 일들’은 모두 손해가 갔다.
123. 늦어도, 고생해도 ‘온전히’ 알고 할 일을 하면서 가야, 앞날에 문제가 안 생기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124. 만사의 모든 일을 부분적으로 알고 말하고 행하면, 실수다. 손해다. 문제다. 실패다.

125. 이것을 깨달아라! - <선악 간의 행위대로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서 확실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롭게 행하면 축복을 받고, 불의를 따라 행하면 망한다."라고 예언하면 다 맞다.

126. 하나님이 보낸 자를 해롭게 한 자들과 불의에 조건이 잡힌 자들은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녕코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행하신다. 무엇으로 치고 심판하시는지는 비밀이라, 사명자 외에는 알기 어렵다. 기도한 자는 응답을 받아서 알기도 한다.

<2017년 3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욕심이 '실천'하면 '실체'가 생긴다. 고로 '사탄도 굴복'한다.

2. 방의 천장에서 물이 새면, '물을 막는 실천'을 하면 안 샌다. 이와 같이 실천하면, 사탄도 끝난다.

3. 발에 잡초와 가라지가 나면 '뽑으면' 없어진다. 사탄은 잡초와 가라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끝난다.

4.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고로 <실천하는 자의 세계>는 '빛의 세계'라서 못 들어온다. 천년왕국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사탄을 옥에 가두는 자'가 된다.

5. <개발>하면 '새로운 것'을 존재시키니 '옛것'이 사라지듯, <실천>하면 '사탄'도 사라진다.

6. 더러운 물을 정수하면 더러운 물이 쪼개져 없어지듯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사탄'도 '악'도 '불의'도 쪼개져 없어진다.

7.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죄, 더러운 것, 나쁜 것, 사탄, 귀신, 악'이 쪼개지고 사라진다.

8. 호두 껍데기를 쪼개면 '알맹이'가 나오듯, 하나님의 뜻을 두고 실천하면 '사탄과 악'은 사라진다. 고로 실천하라는 것이다.

9. 사탄과 악과 죄는 '쓰레기'와 같다. 방의 쓰레기를 치우고 없애는 실천을 안 하면 평생 그냥 있듯이, 쓰레기와 같은 사탄과 악과 죄도 그러하다.

10.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이 가면 표가 나게 보이듯이, 실천하면 실천과 동시에 원하는 것이 '실체'가 되어 표가 난다.

11. 실천하여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실체가 되는 맛'이다.

12. 실천하면 해결된다.

13.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충분히 실천하여 해결'하도록, '인간의 형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14. 하나님은 인간도 만물도 그 형상과 모양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고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15. 완전하게 행하면 '완전한 것들'과 하나 되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하나가 된다.

16. 100만 명 청중 집회를 해도 '남는 것'이 없으면 '실속'이 없다.

17.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도 자료 값 빼고 수고비 주고 ‘남는 것’이 없으면 ‘실속’이 없다.
18. 100명에게 말씀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전도되지 않으면 ‘실속’이 없다. ‘한 명’도 전도되지 않으면 ‘행한 의’만 있지 ‘실속’은 없다.
19. <실천>은 ‘신비를 창조’한다.
20. 만물들도 ‘살아서 실천’하니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고, 뿌리에서도 결실하여 ‘신비를 창조’한다.
21. <실천>하니 ‘번식’한다.
22. <만물>들도 살아서 실천하는데, <사람>이 살아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부딪히고 밟힌다.

<2017년 3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에 따라서 ‘신’이 되고 ‘사람’이 된다.
2.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고 약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의 바람이 불면 마음이 쉽게 휘고 흔들린다.
3. <인간의 마음>은 ‘갈대’같이 잘 휘고 흔들린다.
4. <갈대>는 잘 흔들리기는 해도 잘 꺾이지는 않는다. 바람에 쉽게 흔들렸다가도 다시 일어난다. 신앙이 어리면, ‘갈대 같은 마음, 갈대 같은 행실, 갈대 같은 인생’이 된다. 이것을 알고 자기를 다스려라!
5.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 흔들려서 결국 포기한다. 갈대같이 흔들려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6. 포기하면 꺾여 버린다. 이는 갈대같이 흔들리는 것만 못하다.
7. 흔들리면서도 ‘할 일’을 하면 ‘승리자’다.
8. 꺾어서 포기하는 자는 ‘패자’가 된 것이다.
9. 인생은 ‘목적’을 향해 갈 때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가면 ‘승리’하여 얻게 된다. 그때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
10. 차를 타고 갈 때 어떤 길은 잘 닦여서 흔들리지 않지만, 어떤 길은 잘 닦여 있지 않아서 차가 흔들린다. 흔들려도 끝까지 가면 얻는다.
11. <강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태풍이 불었을 때는 꺾여 버린다. 100% 완벽하지 않아서 꺾일 바에야, 처지에 따라 행하면서 꺾이지 않는 것이 낫다.
12. <빌딩>도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 하지만 ‘바람’에 꺾이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
13. <뇌>는 ‘보는 것, 듣는 것’에 자극을 받고 ‘갈대’같이 ‘유동성’을 보인다. 그러다 ‘제대로 판단’하면, 생각이 다시 선다.
14. 사람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겪을 때 <마음과 생각>은 뇌의 반응에 따라서 ‘흔들림’을 보인다. <마음>은 흔들려도 주를 중심하여 기도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여 <행실>은 흔들리지 말아라.
15. <마음>은 흔들려도 <행실>은 흔들리지 말아라.

16. <마음>은 흔들려도 <몸>은 무게 있게 중심을 잡아라. <몸>이 생각이 흔들리는 대로 안 하면 된다.
17. 상대나 상황에 따라서 흥겹게 흔들며 춤도 추어라. 하지만 <근본과 중심>은 ‘오직 전능자’께 맞춰 놓고 하는 것이다.
18. <팔>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며 제스처를 하되, <중심 실체인 몸>은 영원한 것을 위해 실천해라.
19. <팔>은 때에 따라 흔들되, <머리>는 흔들리지 말아라. <머리>가 흔들리면, <골>이 흔들려서 쓰러진다.
20. 돈은 안 쓰면 흐지부지 소모되어 표가 나지 않는다. <옳은 것, 영원한 것, 의로운 것>에 쓰면, ‘존재의 표’가 난다.
21. 사람들은 흔히 ‘특별할 때’만 깨닫고, “하나님, 성령님!” 하고 부른다.
22. 알든지 모르든지, 특별하든지 평범하든지, 좋든지 힘들든지 ‘하나님, 성령님’이다.

<2017년 3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으로 죽고 산다.
2. <생각하는 것>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3. <좋게 생각>하면 ‘천국’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지옥’이 된다.
4. 감옥이라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대했는데 한 사람은 고통받다가 죽었고, 한 사람은 기뻐하며 살고 있었다. 죽은 자와 같이 있던 자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니, 그는 그렇게도 달력만 보고 매일 나갈 날짜만 세면서 시간이 안 간다고 하며 눈만 뜨면 시간과 싸움을 했다고 했다. 한 시간이 10일 같고, 100일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지루한 생각, 희망 없는 생각>이 자기를 죽인 것이다.
5. 만사의 모든 일들도 ‘생각하기’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된다.
6. 같은 존재물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싫어져서 괴롭기도 하다.
7. <절대자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여라. 그러면 ‘항상 기쁨, 감사, 희망, 사랑’이다.
8. <생각의 구상>을 잘해라.
9. <생각>을 잘하면, <생각>에서 성공한다.
10.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처한 곳의 차원’을 높이려고 희망으로 도전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이런 나쁜 환경에서 살지?” 하면서 <생각>을 잘못하고 살고 있었다. <생각>이 잘못되니 <도전>도 안 하는 죽은 삶을 살았다.
11. 환경이 나쁜데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하며 살면, ‘마음 천국’이 된다.
12.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은 - 아무리 ‘이것은 좋은 것이야. 나는 잘될 거야.’ 하며 <생각>을 좋게 하고 살아도 좋게 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한 대로 받으니, 생각만 좋게 한다고 좋게 되지 않는다.
13.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생각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하면 그 환경이 ‘성공의 장소’도 되고, 극복해 나가는 그 기간이 ‘성공의 기간’도 된다.

14. 한번은 무지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쫓기어 ‘평생 처음 가 보는 곳’에 있게 되었다. 그때 생각하기를 ‘생전 처음 오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내게 주실 선물이 없나?’ 하고 기도하며 찾아다녔다. 성자께서 말씀하신 곳에서 결국 찾아왔다. 그때 ‘왜 억울하게 이렇게 쫓기나?’ 하고 괴롭게 생각하고 다녔으면 애만 타고, 화만 나고, 화병만 더 쌓여서 마음만 버렸을 것이다. 그때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좋게 생각하고 사니 ‘환난 중에 삼위가 주시는 귀한 보화’를 얻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지난날을 이야기하며 삼위와 대화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환난 중에 얻을 것을 또 준다. 매일 찾고 행해라.” 하셨다. 시대 십자가에 매달려 높은 곳에서 쳐다보며 그 말씀대로 행하니 ‘생명들’도 찾았고, ‘성전’도 찾았고, ‘말씀’도 더 깊이 깨닫고, ‘발에 감춰진 각종 보화’도 찾았다. 세상의 죄를 대신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죄가 없어지게 하셨다. 그리함으로 ‘의인들이 행할 것’을 행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이루었다.

15. 섭리역사가 오면서, <최고 좋은 것들>은 ‘최고 환난기’에 주셨다.

16.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니, 홀로 있게 되었다. 그때 더욱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으니 삼위는 ‘그때 주실 것’을 실컷 주셨고, 생각도 ‘최고의 차원’으로 하게 되었고, ‘섭리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서 바로 가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17. 억울한 누명이나 곡한 일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내 생각’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했다. 그때마다 ‘개인의 것도, 섭리사의 것’도 주셨다. 비밀의 말씀도 주셨고, 평소에 얻으려고 그리도 희망했던 것도 주셨다.

18. 30년, 50년 동안 원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섭리사 최고 환난기’ 때 찾게 하여 얻었다.

19.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웃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며 변치 말고 살아야 된다.

<2017년 3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20. 어느 때는 <생각>을 잘못하여 ‘죄’를 짓고, 어느 때는 <생각>을 잘하여 ‘의’를 행한다.

21. 어느 때는 <잘못된 생각>으로 괴로워하며 지옥으로 만든다.

22. 잘못 생각하면 즉시 괴롭고, 고통이고, 지옥의 마음이 된다.

23. 불안과 근심과 염려도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생긴다.

24.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잘못 생각’하고, 자해하며 괴로워한다.

25. 좋은 환경에 있어도,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일을 만나도 <그릇된 생각>을 하면 ‘고통의 장소’가 되고 ‘지옥’이 된다.

26. <자기 생각>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모시고 살아라.

27. <자기 생각>에서 항상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주’를 빼지 말고, 같이 살아야 된다.

28. 항상 <자기 생각>에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를 넣고 사는 자’는 최고로 사랑하는 자와 껴안고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는 자와 같다.

29.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말씀>을 쥐도 싫어한다. ‘자기중심의 생각, 자기 의지적 생각’을 해서다.

30. 온 인류의 사람들 모두 <생각>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운명’도 좌우되고 ‘가정, 민족, 세계의 운명’까지 좌우된다.
31.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돕고 함께하신다.’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인생들 모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돕고 함께하신다. 인생들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문제다.
32. <자기 생각>을 통해 하나님이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
33. 지구 세상 모든 자들이 죽을 고비를 겪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횡수에 상관없이 도우신다.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 살리시고, 어느 때는 <자기 생각>을 통해 살리시고, 어느 때는 <천사>를 통해 살리시고, 어느 때는 <삼위>가 직접 행하여 살리신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 뿐이다.
34.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면, <영혼>이 ‘사망’에 처해 죽는다. 죽었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지옥’이나 ‘악한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말이다. <육신>도 ‘사망권’에 처하면 그러하다.
35.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간의 것’은 없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사망권’에 속해 있고 <그 혼과 영>은 ‘사망의 세계’로 사라진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행한 자들>은 ‘생명권’에서 살고, <그 혼과 영>도 ‘빛의 세계, 천국’에서 살게 된다. 정말로 그러한지 꿈에 보여 준다고 했으니, ‘너의 혼과 영’이 어디에 처해 살고 있는지 보아라. 혹은 하나님과 성령께 물어보아라. 물으면, 하나님과 성령께서 ‘마음’에 대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대답해 주시고, ‘만물’로 보여 주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대답하신다.
36. 사람들은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자기 삶만 살다가 늙어 죽는다.
37. 누구든지 <과거>는 다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만 있다. 그것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자가 없다.
38. <육신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믿고 사랑하여라. 그러면 마치 어린 자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천국’에 간다. 이 세상에서는 <육>이 사니 ‘육’으로만 봐서 ‘육’이 커 보이지만, <이 세상 육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에 비해 순간’이다.
39. <이 세상>에서 자기 꿈을 이뤘어도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도 안 나고 허무하다.
40. <인간 최고의 삶>은 ‘시대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시대 구원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이 세상의 재벌이나 왕들이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려도 그것은 ‘일순간’이다. ‘남는 것’이 없다. <육신이 자기 영을 위해 산 것>은 마치 ‘지구 세상’을 얻은 것만큼 자기에게 남아서 ‘천국’에서 기한 없이 누리며 영원히 산다. 그 <육신>도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
41. <과거 옛 역사>는 이미 지나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역사라도 <지나간 것>은 끝났다. 이제 <새 시대, 새로운 차원과 희망의 세계>다. <옛집>을 부수고 <새 집>을 찾는다.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삼위께 맡긴 자>는 ‘삼위의 차를 타고 가는 자’와 같다. <삼위께 안 맡긴 자>는 ‘자기 생각으로 혼자 걸어가는 자’와 같다.
2. <비교>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보통’으로 보고 <건너편 남의 것>을 ‘크게’ 보니, 그때 실상을 깨닫도록 ‘비교’해 보게 한다. 비교하니,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크고 좋고 신비함을 깨달았다. 이럴 때만 ‘비교’하는 것이다.

3. <자신의 것이 더 좋은데 못하다고 생각할 때>, 이때 ‘비교’하여 ‘자신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4. <자신의 것이 더 안 좋을 때> ‘비교’하면, 위축받고 오히려 힘을 잃게 된다.
5.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작는데 크다고 생각할 때>는 실상을 ‘비교’하여 깨닫게 해 주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
6. 아무 때나 비교하면 <자기보다 작은 자> 앞에는 영광스럽지만, <자기보다 큰 사람> 앞에는 작게 여겨져 오히려 기쁨과 힘을 잃게 된다.
7. <상대>는 ‘큰 것’만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작은 것’만 가지고 있다 하자. 커도 장단점이 있고, 작아도 장단점이 있다. 어떤 것은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좋은 면도 있다.
8. <하나님이 주신 작품 중의 하나>가 ‘작고 보통’이어서, 어느 날 <큰 것>과 비교해 봤다. 그것은 값도 3배나 더 비싸고, 무게도 3배나 더 무거웠다. 형상과 모양을 아무리 비교해 봐도 <큰 것>이 더 좋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이것이 저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하고 물었다. 이때 하나님은 한 가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 그 후에는 <큰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 비교가 안 되게 더 좋아 보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두 개 중의 <작은 것>이 더 좋고 값이 있어서 이것을 선물한 것이다.” 하셨다. 후에 <큰 것>은 다른 사람이 사 갔다. 그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흙색>이라서 마치 ‘빛 없는 다이아몬드’ 같다. <보석>은 ‘빛’이 생명이듯 <작품>도 ‘빛’이 생명이다.”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형상과 모양>이 ‘어떤 상징의 형체’를 이루었느냐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큰 것>은 ‘꽃의 형체’를 이루었고, <작은 것>은 ‘사람의 핵 형체’를 이루었다. 고로 <작은 것>이라도 큰 것과는 값이 비교가 안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하셨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9. <새 시대 성약의 교회>는 작아도 시작하고, ‘새 말씀과 사명’으로 다이아몬드나 각종 보석같이 빛이 난다.
10. <세상에서 보는 신비함과 아름다움과 가치>는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11. <차원 낮게 사람이 보는 것>과 <차원 높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
12. <사명>도 ‘누구를 상징한 사명이냐’에 따라 빛이 좌우된다.
13. <건물>도 ‘어떤 것을 기념한 건물이냐’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14. <커도> ‘상징한 것이 작은 것’이면 작고, <작아도> ‘상징한 것이 큰 것’이면 크다.
15. 하나님은 “그 건물이 아쉬우면, ‘제2의 건물’로 아쉬움을 채워라.” 하셨다.
16. 하나님께 말하기를 “제가 아쉽게 생각할 것을 이미 알고 ‘제2의 건물’을 건축하셨지요?” 하며 “하나님은 최고예요!” 하고 극찬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항상 최고잖아.” 하셨다.
17. <전체의 것>은 ‘한 지체같이 하나’다.
18. <한 건물>로 다 만족할 수 없다.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다른 건물>이 건축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아쉬움을 채우면 된다.
19. 작품도 <한 작품>으로 다 만족할 수 없다. 이 작품의 아쉬운 것은 <다른 작품>에 갖춰져 있으니, 거기서 아쉬움을 채우면 된다. - 사람도, 역사도 그러하니라.

1. <불의 성질>이 <사람의 성질>과 같다.
2. <만물의 성질>이 <사람의 성질>과 같다.
3. <동물의 성질>이 <사람의 성질>과 같다.
4. <타인의 성질>이 <자기의 성질>과 같다.
5.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개성대로 창조하시어 인간이 운행하게 하셨다.
6. <만물>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개성대로 닮아 있을 뿐 아니라, '그 존재의 성질과 힘'도 사람과 닮아 있다. 고로 만물도 사람같이 만든다.
7. <인간의 성질>은 '생각'이다. '힘'이다.
8. <만물의 성질>은 '존재의 힘'이다. 이 존재의 힘은 '사람의 생각'과 같다.
9. 만물이고 사람이고 창조주의 계획대로 '제2의 창조'를 한다.
10. 사람이 자기를 만들 때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대로 만들기'를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11. 사람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기'를 원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합당하면 같이 해 주신다. 고로 '하나님 구상의 작품'을 낳는다.
12. 만물들은 '사람의 기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같은 성질과 힘'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사람이 자기를 만들듯이 만물도 자기를 만들면서 존재하고 있다.
13. 뜨거워야 천연 굴이 녹고 변화되어 각종 형상들이 만들어지듯이, 사람도 '생각이 뜨거워야' 마음이 녹아져서 그때 그때 실천하면서 자기가 만들어진다.
14. (하나님) <끝>을 지혜롭게 하여라. 안 그러면 '끝에 있는 꼬리'가 잡히게 된다.
15. <끝>을 잘해라. 안 그러면 '꼬리'가 문에 걸려서 물린다. 다 된 밥에 코 빠진다.
16. 글을 써 놓고도 <끝>을 잘해야 된다. <교정>이 '끝'이다.
17. 잠언도 <끝>에서 '더 큰 것'을 깨닫는다.
18. 전도할 때도, 어떤 것을 살 때도, 건물을 살 때도, 새 성전에 들어갈 때도, 그 외의 각종 일들도 <끝>을 잘하지 않으면, '끝인 꼬리'가 잡혀서 힘들게 된다.
19. 쇠로 각종 도구를 만들 때도 '끝 처리, 담금질'을 잘해야 된다.
20. 건물을 다 짓고 '인테리어 끝 처리'를 잘해야, 전체 건물이 아름답고 찬란하다.
21. 한 지역을 개발할 때도 '끝 처리'를 잘해야, 전체도 운명이 뒤바뀌어 찬란하게 빛난다.

22. 사람도 어떤 일이든지 ‘끝매듭’을 잘 지어야 ‘그동안의 것들’이 빛나게 된다.

23. <구약역사>는 ‘시작 역사’이고, <신약역사>는 ‘건설 역사’이고, <성약역사>는 ‘끝 역사’다. <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찬란하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와 ‘시대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끝의 성약역사>를 가장 멋지게,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행하신다.

24. <구시대 신약역사>는 ‘끝 처리’를 잘못해서 <새 시대>를 발견하지 못했다.

25. <구시대>는 그 역사 그대로 끝이 나는 줄 알았다. 고로 더 이상은 없다고 했다. <시간의 끝>은 ‘다음 시간’으로 연속되고, <오늘의 끝>은 ‘내일’로 연속되듯이, <구시대의 끝>은 ‘새 시대’로 연결되고, <육의 삶의 끝>은 ‘영의 삶’으로 연결된다.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체>는 ‘각각’인데 <피>는 ‘하나’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의 종교>도 ‘각각’인데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이것도 저것도 ‘하나’로 보시고 행하신다.

2. <뇌>는 ‘바람개비’ 같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돌아가듯이, 사람은 ‘생각하는 쪽’으로 행하게 된다.

3. 남녀가 같이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 버리듯이,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먹는 것이나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은 하나가 된다. 계속 같이 하면, 계속 하나가 된다.

4. <복음>을 가지고 가르쳐 주고 배우게 하여 ‘하나’가 되게 해라.

5.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도 ‘같이 행할 때’만 ‘하나’가 된다.

6. 관리도 ‘같이 해 줄 때’만 ‘하나’가 된다. 하다가 말면, 각각 쪼개진다.

7. 사람은 사람 선에서 경영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상과 인간과 영의 세계와 영들을 다스리시며 경영하신다.

8. 인간만 경영한다고 삶이 경영되는 것이 아니다.

9. 자기 인생을 경영해야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영의 세계와 영들을 경영하셔야 인생들이 존재한다.

10. 사람들이 자기 삶을 위해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밀착하여 행하신다.

11. 가정에서는 가정을 운영하며 경영하지만 그 위에 국가가 경영해야 국가가 존재하듯이, 인생들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기에 그 삶이 운영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12. 성전을 사는 것도 <우리 선>에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선>에서도 해 주셔야 된다.

13. <술>만 가지고서는 경영이 안 된다. <술뚜껑>이 자기 선에서 할 일을 해 줘야 경영이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은 ‘땅과 하늘,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4. <큰 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다 하신다. <나머지>는 ‘인간 차원’에서 해야 된다.

15. 전기도 ‘마이너스극과 플러스극, 두 선’에서 이루어지듯이, 인생도 <자기 선>만 가지고는 존재하지 못하고, 온 인류 누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인간의 삶을 위해 자신의 뜻과 경영을 실행’하시며 인생들을 존재시키신다.

16. 사람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하나님 선의 것'을 실행하시며,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17. <사람 자체의 자유 의지>가 있고 <하나님 안의 자유 의지>가 있다.

18. <하나님 안의 자유 의지>는 그만큼 넓고 크다.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잊으면, 금방 간다. 안 쓰기 때문이다.

2. 시간은 쓰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3. 생각에서 잊으면 '자기가 그렇게도 기다린 자'가 왔는지, 갔는지, 죽었는지, 살아 있는지 모른다.

4. <인간의 무지>는 '두 가지'다. '모르는 무지'가 있고, '알았는데 잊어버린 무지'가 있다.

5. <무지>는 자신을 고생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

6. <알고 실천하는 자>는 '희망의 삶'이다.

7. <생각>이 깨어 있어, 항상 보고 들어라. 때가 되면 '생각한 것'이 보이고 들린다.

8. <생각이 살아 있는 자, 잊지 않는 자>만 '새 시대'가 와도 알아보고 '자기 복의 때'가 와도 알아보고 맞는다.

9. <계절의 때>가 오면 비가 수시로 오고 눈이 오듯이, <자기 때>가 되면 '자기 원하던 것'이 온다. 그때는 힘들어도 그것을 잡고 운영하며 실천해야 된다. 그때가 '황금기'다.

10. <자기 때>에는 힘들어도 '바라던 것'을 잡고 견디며 잘 운영해야 된다.

11. <자기 때>에 힘든 면이 조금 있다고 '단점'만 생각하며 안 하면, 기회가 지나고 나서는 '힘든 것'이 너무 커져 버려서 그때는 아예 하려는 생각조차 못 하게 된다.

12. <자기 때>에는 '여건'이 좋고 '장점'이 크고 '단점'은 아주 작다.

13. <때> 지나면 '단점'은 커지고 '장점'은 작아진다.

14. <자기 때>도 <하나님의 때>도 밤과 낮이 오듯이 온다. 밤이 되면 못 한다.

15. 매일 밤과 낮이 오듯이, <자기 할 일의 때>와 <하늘의 할 일의 때>가 오고 간다.

16. <할 일을 잊지 않는 자>만 한다.

17. 시간이 돼도 할 일을 모르든지 잊으면, 못 한다.

18. <하나님과 성령의 축복>은 '그때마다 할 일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9. 글씨를 잘못 썼을 때도 ‘그 글자를 버리고 새로 깨끗이 쓸 때’가 있고, ‘그 글자를 안 버리고 다시 손대어 고쳐서 쓸 때’가 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누구를 쓸 때나 삼위가 쓰실 때도 ‘쓴 자가 잘못하면 새로운 사람이 많으니 다른 사람을 쓸 때’가 있고, ‘쓴 자가 뉘우치고 정신 차리면 고쳐서 쓸 때’도 있다.

20. 글씨를 잘못 써서 고쳤는데 고쳐도 ‘원하는 글자’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그 글자로 읽지 않으니 그 글자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이와 같이 자기 행위가 선을 넘으면, 하나님과 주도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

21. <자기 행위>는 ‘백지장 위의 글씨’와 같다. 자기가 지저분하게 행하면, ‘지저분한 글씨’와 같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보게 된다.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해야 ‘정자체’같이 누구나 보게 되고, 삼위도 보고 그를 쓰신다.

22. 멋진 글씨체같이 멋지게 보고 듣고 행하여라.

23. 글씨를 교정하여 완전해지듯,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행하여 <자기 생각과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24. 자기는 잘했어도 모든 자들이 볼 때 틀렸으니, 자기같이 맞다고 보지 않는다.

25. 자기 행위가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들이 많다.

2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무의식중에 글을 쓰는 것’과 같아서 ‘틀린 것들’이 너무 많다.

27. 정성을 다해 다시 글씨를 써야 ‘정자체’로 써지듯, <자기 행위>도 그러하다.

28. 글씨를 써 놓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치기다. <자기 행위>도 그러하다.

29. 글을 써 놓고 보면 ‘틀린 글씨’가 많고, ‘앞뒤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더 좋은 단어가 있는데 그보다 못한 단어를 쓴 부분’도 있다. 제대로 된 글이 되게 하려면 10~20가지를 봐야 된다. 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열 번, 스무 번씩 꼭 확인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절대자 하나님같이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하여라. 한 번에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 ‘완전’에 이를 수 있다.

30.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살 때도 - 자기가 그 물건을 사려고 기다렸기에 그런 물건이 나오면 확인도 안 하고 정신없이 좋아하기만 한다. 그리고 덥석 사 버린다. 후에 그것과 비슷한데 가격이 더 헐한 것이 나오면, 바로 후회하게 된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센터에서 이것저것 따져 보고 제일 좋은 것’을 고르기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도 후회하고 탄식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께 간구하고 맡기고 ‘전능하신 그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하면, 항상 만족하게 행한다.

31.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완전히 행하시고, 그 보낸 자만이 삼위와 일체 되어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룬다. 누구든지 삼위와 보낸 자와 일체 되면, ‘완전함’에 이른다.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가 행한 것>을 역사가 흘러도 두고두고 이야기하면, ‘그 사연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33. 어떤 지역, 어떤 배경,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값’도 달라지고 ‘차원’도 달라지고 ‘쓰임’도 달라진다.

34. <아는 자>는 ‘포기’를 안 한다.

35. <가려 가며 기쁘다 하는 주관>을 넘어서 <이래도 저래도 기쁘다 하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

36. <목적을 다 이루고 잔치를 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37. <목적한 것을 다 이루고 잔치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38. 목적을 이루고 잔치하게 해 줬는데도 ‘삼위일체’를 모시고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이상적인 삶을 뺀 삶’이 된다.

39. 그렇게도 긴긴 세월 동안 이끌어 주어 목적을 이루고 잔치를 하게 해 줬는데, 점점 ‘기쁨의 잔치 역사’가 식어 간다. ‘가치’를 몰라서다.

40. 결혼하기까지, 즉 혼인 잔치를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안 죽고 성장해야지, 다 컸어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하는 짝을 만나야지, 사랑하는 짝을 만나도 사랑을 키워야지, 혼인 잔치를 하더라도 잔치할 만큼 경제력이 있어야지, 또 잔치에 올 자도 있어야 된다. 이것저것 모두 갖춰서 혼인 잔치를 했어도 배우자가 같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거나, 살아도 만족 없이 살아간다. 고로 지금까지의 수고와 희망이 연속되지 않고 사랑이 식어서 각각의 삶에서 각각 나름대로 기쁨을 얻고 살게 된다.

41.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고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이 조금 발달되어 짐승과 구분되어 살 정도로 변화되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이 땅에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로써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성장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장하기도 전에 자기들 좋은 대로 육적 사랑만 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랑>이 깨졌다.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정녕코 이루시기 위해 6000년 동안 역사해 오셨다. 곧 구약 4000년간 많은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을 보내어 역사하시다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고 2000년 동안 차원 높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 가는 단계>로 역사하셨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자를 다시 보내시고, 이 땅에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어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 차원의 말씀>을 주어 ‘마지막’으로 행하게 하셨다. 이로써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고 <휴거의 혼인 잔치>를 하셨다. <이 역사에 참여하여 휴거된 자들>은 시대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깨닫고 행함으로 변화된 자들로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서 삼위일체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삼위와 함께 절대, 절대, 절대 사랑하고 사는 <사랑의 혼인 잔치>는 지상에서도 ‘1000년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은 ‘남녀가 결혼하고 사랑하며 사는 기간’과 같다. 남녀가 <혼인 잔치>만 딱 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잔치한 보람’이 없다. 날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위해 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못 하면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내가 결혼을 했나? 나와 같이 사는 자가 있나?’ 해진다. 하나님과도 그러하다. <휴거>를 이뤘어도 ‘삼위와 사랑하며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휴거된 보람’이 없고, ‘내가 휴거됐나? 주가 내 옆에 계시나?’ 해진다. ‘같이 사는 것’이 그리 크다. <혼인 잔치>를 했으면 삶 속에서 수시로 ‘사랑의 잔치’를 하고 이웃을 불러다가 ‘먹는 잔치’도 하듯이, <휴거 잔치>를 했으면 ‘삼위의 절대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땅에서 <육>으로도 매일 ‘사랑의 잔치’를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영>도 황금성 천국에서 ‘사랑의 잔치’를 하고,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영원히 ‘사랑의 잔치’를 하면서 살게 된다.

42. <사랑의 세계>는 ‘같이 사는 자’만 알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가 왔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만나고, 그를 통해 ‘새 말씀’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만 안다. 나머지는 모른다. 구경꾼이다. ◎ 오늘 앞부분에 전했던 잠언 5개를 반복해서 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 <가려 가며 기쁘다 하는 주관>을 넘어서 <이래도 저래도 기쁘다 하는 차원>까지 가야 된다. - <목적을 다 이루고 잔치를 할 때>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 <목적한 것을 다 이루고 잔치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되다. - 목적을 이루고 잔치하게 해 줬는데도 삼위일체를 모시고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이상적인 삶을 뺀 삶>이 된다. - 그렇게도 긴긴 세월 동안 이끌어 주어 목적을 이루고 잔치를 하게 해 줬는데, 점점 ‘기쁨의 잔치 역사’가 식어 간다. <가치>를 회복하고 ‘기쁨의 휴거 잔치’를 하여라.

<2017년 3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지루하지 않은 기쁨의 삶은 <그때그때 처해서 할 일을 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이 삶이 ‘가장 순리의 이상적인 삶’이다.

2.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먹을 때 먹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동행하는 삶>이 ‘가장 재미있고 스릴 있는 삶의 코스’다.
3. <때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창조주와 함께 가는 삶>이 ‘가장 재미있는 삶의 코스’다.
4. <때에 합당한 스릴 있는 삶의 코스>는 ‘휴거 코스’다.
5. 맞는 것도 ‘깨달아야’ 맞다고 한다.
6. <인생 삶의 코스>는 ‘하나의 놀이기구 코스’와 같다.
7.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느다. -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천국에 거하신다.’라는 말이다.
8. 깨닫지 못하면 앞이 캄캄하고, 깨달으면 앞이 흰하다.
9. <작은 실수>를 통해 <큰 실수 할 것>을 미리 깨닫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10. <실수>를 통해 <성공>을 깨달아라.
11. <음식>도 뜨거우면 제맛이 나고, <사람>도 뜨거우면 제맛이 난다.
12.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지, 섬세히 찾아보아라.
13. <자기 구상의 실천>은 다 무너진다.
14. <하나님의 구상>을 받았어도 그 구상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었다가 나중에 방법을 달리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서 하신다. 그러면 ‘화’가 ‘복’이 된다.
15. 확인을 안 하면, ‘하찮은 것’을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다.
16. 조금씩 점진적으로 기어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17. 큰 데서 살다가 기어 내려오면 힘들어서 못 산다. (큰 데서 살다가 작은 데서는 못 산다는 말이다.)
18. 하나님께 물어도 말씀을 안 하실 때는 ‘안 하시는 것이 답’이다.
19. <지구 세계 ‘하루’ 운영>이 <일개 나라 ‘일생’ 운영>이다.
20. <크레인 ‘하루’ 일>이 <포클레인 ‘일생’ 일>이다.
21. <큰 회사 ‘하루’ 수익>이 <작은 회사 ‘평생’ 수익>이다.
22. <주의 날 하루>가 <인생들의 날 천 년>과 같다.
23. <점>만 찍어도 ‘상징’이다.
24. 하나님이 주셔도 받는 자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
25. 음식을 안 보고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

26. 하나님을 믿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맛으로 믿느냐.

27. 주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면, 무슨 맛으로 믿고 사느냐.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똑같은 크기라도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 (둘 다 똑같은 크기라도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따라 어떤 것을 선택할지 좌우된다는 말이다.)

2. 똑같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따라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결정하게 된다는 말이다.)

3.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추고 있어도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건물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갖추고 있어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선택이 좌우된다는 말이다.)

4. 두 사람이 모두 다 갖추어 갖고 있어도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누구를 택할지 선택이 좌우된다.

5. 두 개의 물건이 다 갖추어 갖고 있어도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택할지 결정이 좌우된다.

6.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조금 덜 갖추고 있어도 ‘선택하는 자’가 좋아하면, ‘조금 덜 갖춘 사람’을 선택한다.

7. 상대가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선택하는 자’가 좋아하면 선택한다.

8. 상대방이 못 해서 선택이 안 되기도 하지만, ‘선택하는 자’가 안 좋아하면 선택이 안 된다.

9. 집이나 물건이나 더 갖추면 선택되기도 하지만, 선택하는 자가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10. 종교 선택도 그러하다. 우상을 섬기든, 이 세상에서 정신 수양만 하고 구원 없이 끝나는 ‘자기가 좋은 종교’를 선택한다.

11. 실력이 비슷하거나 더 좋아도 선택하는 자가 ‘실력이 부족한 자’를 선택하기도 한다.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12. 선택할 때의 마음이다.

13. 사람이나 물건이 나쁘기 때문에 나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좋은 사람, 좋은 물건이어도 ‘자기가 싫으면’ 나쁘다는 평가를 한다.

14. 저 사람에게는 ‘나쁜 평가’를 받지만, 이 사람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

15. 다 갖춘 작품인데 주인에게까지 ‘낮은 평가’를 받았어도, 다른 사람은 ‘좋은 평가’를 하며 그것을 귀히 여긴다. 주인이 그 작품을 멀리하니, 좋게 평가한 사람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산다.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가 못 해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선택자의 생각과 취향’에 따라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선택하는 자의 생각대로 평가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라.

16.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도 그러하다. 세상에서 볼 때 ‘더 좋고 멋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보다 못한 자’를 선택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다. 고로 낙심할 것 없다.

17. 하나님도 ‘좋아하는 쪽’을 택하신다.

18.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다.

19.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신다.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사람도 어떤 물건도 ‘더 갖춰서’ 선택하기보다 ‘선택하는 자가 더 좋아해서’ 선택하게 된다. 하나님도 ‘좋아하는 쪽’을 택하신다.

21.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다.
◎ 지금부터 전하는 잠언은 <섭리사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쓴 잠언입니다.

22. 이것을 선택했는데, 길이가 길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선택되지 않은 것이 길이는 더 길다.

23.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택했으니, “저것이 더 크고 긴데, 왜 이것을 택하셨지?” 하지 말아라. ‘더 좋고 합당해서’ 이것을 택했다.

24.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데, 하나님도 주님도 왜 보다 못한 나를 택하셨지?’ 한다. 그러고는 오히려 성의 없이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고 힘들어한다. 그러다 ‘나는 그냥 신앙 유지만 하라고 택했나 보다.’ 한다. 아니다. ‘좋아서, 합당해서’ 택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하여라.

25. 크기와 길이가 비슷해도 ‘이 교회’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고 합당하고 뜻이 있기 때문’이다.

26. 하나님께 ‘시내에서 더 가까운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에 있는 성전 하나’가 매물로 나오려 해서 좋아하며 계속 기도했다. 정말 크고 웅장하고 좋은 성전이였다. 2016년 3~4월까지 기도했다. 또 알아보니, 아직 안 판다고 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알아봤다. 알아보니 ‘시내에서 떨어진 곳의 한 성전’이 경매로 나왔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다. 성전도 크고, 교회 옆에 공원도 있는 교회였다. 그래서 경매에 참여하자고 했다. 그 무렵에 한 꿈을 꾸었다. 밭에서 ‘흰 돌 두 개’를 캐는 꿈이었다. 계시록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계 2:17)” 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경매로 나온 대(大)성전 사진’을 보니, ‘흰색 교회’였다. 의자도 희고, 교회도 네모진 흰 돌같이 생겼다. 그런데 이 일이 틀어져서, 이 성전을 못 샀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말씀하시기를 “꿈에 흰 돌을 주운 것은 <성전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발행한 하나의 티켓>과 같으니, 이제라도 그 정도에 해당되게 그 티켓을 쓰면 된다. 언제든지 그 티켓을 써라. 물건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해라.” 하셨다. 하나님은 <큰 성전>이라고 좋아하지시지 않는다. <작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원하고 뜻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자.” 하신다. 키 크다고 다 배우자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키가 작아도 자기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선택된다. 성전도, 물건도 그러하다.

27. 하나님께 말기면, 하나님이 대신 골라 주신다. 어느 때는 ‘큰 것’을 두고 ‘작은 것’을 선택해 주신다. 왜 ‘작은 것’을 선택했냐고 물으면, 하나님은 “앞날을 보면 이것이 더 좋아. 이것이 ‘속’이 더 좋아. 더 예뻐. 더 신비해. 내가 너 주려고 지었다.” 하고 속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 자기가 ‘크다. 작다. 멀다. 가깝다.’ 하면서 따지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말기고 하기’다. 다 해 놓고 완전히 섭리사의 것이 되면, 그때는 귀에 대고 속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나하나 말해 주며 대화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온갖 일들>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왜 ‘좋은 길’을 두고 ‘고생길’로 접어들게 하시지? 그래 놓고 ‘고생대도 생명길로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지. 지겨워. 민망해.” 하며,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라. 어린히 알고 하시겠느냐.

28. 하나님과 주를 따라가려면 ‘저것’이 좋고 ‘이것’이 못하는데, <못한 것>을 택하고 가면서도 항상 100%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는 ‘하나님만이 아는 지혜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29.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고 “왜 ‘저 큰 것’을 안 사고 ‘이 작은 것’을 샀어?” 하고 울면서 기분 나빠한다. 상점에서 계속 울어 대니 말은 못 하고 “그것은 안 돼.” 하고 맛있는 것을 사 주면서 달랬다. 그리고 “다음에 또 사 줄게.” 하고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왜 작은 것을 샀어? 엄마는 나 사랑하니 말해 줘.” 했다. 엄마는 “너,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말하면 안 돼.” 하고 사연을 말해 줬다. “그 상점 주인이 엄마 친구야. 이거 자기 아들 주려고 외국에서 두 개 사 왔는데, 나를 보더니 하나를 선물로 줬어. 그런데 아까 상점에서 엄마 옆에 고객들이 많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안 주고 엄마에게만 주면 안 되니까, 서로 눈치해서 이거 사는 척 하면서 가지고 온 거야. 이것 봐. 이것은 작동하는 것이 20개나 되지? 일반 것은 커도 작동하는 것이 두세 가지뿐이야. 작아도 기능이 많고, 속이 더 멋지다. 거기서 말했으면, 다른 아줌마들이 자기가 돈 주고 서로 사 가려고 했어. 이거 네 방에서만 조용히 가지고 놀아. 누구 보여 주지 말고. 그 상점 주인이 줬다고 하지도 말고. 그리고 뭐가 좋은지 자꾸 물어야 돼. 그러면 매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가르쳐 주고 설명해 줄게.”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받는 자>만 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삼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받는 자’에게만 주신다.

30. <섭리역사>가 기성보다 작아도 다 갖추면서 간다. <진리>를 갖추고, <보낸 자>를 갖추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갖추고, <신부>를 갖추고,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갖추고, <역사의 때>를 갖추면서 작아도 ‘비행기’같이 날아간다. ‘열차’는 길어도 날지는 못한다. <섭리역사>는 ‘작아도 나는 비행기’와 같고, <기성>은 ‘길어도 못 나는 열차’와 같다.

31.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속’까지 보고 ‘합당한 것’을 선택하신다.

32. <지혜자>는 ‘속’을 보고 선택하고 좋아한다. <지혜자>는 ‘형상’을 보고 선택한다. <모르는 자>는 ‘겉의 크기’를 보고 선택한다.

33. 돌이나 성전이나 ‘모양과 형상이 뜻 있는 것’이면, 작아도 큰 것보다 더 가치 있다.

34.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자세히 보아라.

35. 왜 ‘베들레헴’에서 택하고, ‘월명동’에서 택했겠느냐. 작아도 ‘모양과 형상’이 있고 ‘뜻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36. 잘 봐야, 부정을 안 한다.

37. 잘못 보면, ‘최고의 것’도 부정한다.

38. 잘못 인식하고 보면, ‘메시아’도 부정한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39.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40. <선택>은 ‘상대’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41. 상대가 다 갖췄어도 <선택>은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있다.

42. 상대가 다 갖췄어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43. 선생의 형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이것을 갖추면, 내가 너를 선택한다.” 했다. 10년 동안 몸부림쳐서 ‘그것’을 갖췄는데, 그 형제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육도 영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44. 자기가 갖췄어도 ‘선택하는 자의 마음’에서 싫어하면, ‘자기보다 못한 자’를 선택한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라. ‘다른 차원 높은 자’가 너에게 뛰어온다.
45.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는 지혜’로 말없이 행하신다.
46. 잘못 선택하면 후에는 후회하면서 괴로워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어두운 사망의 길로 가기 싫어도 자기 행위의 대가로 인해 그 길로 가는 삶을 살게 된다.
47. 선택을 잘하면 평생 기뻐하며 누린다.
48. 우상을 섬겨 결국에는 멸망받는 자들도, 하나님과 보낸 주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여 구원받는 자들도 <선택>은 ‘자기 마음이 좋은 대로’ 한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좋아서 선택했지만 점점 가면서 실체는 그렇지 않으니, ‘사막의 나무와 풀’같이 된다. 바람이 불면 모래 바람이 날려 덮치고, 가물면 마른다. 그렇다고 한마디 해 주는 자도 없다.
49.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일체 되어 선택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선택한다. 그리함으로 ‘사망길’로 가고 ‘희망 없는 데’로 간다. 그렇다고 누구 하나 이야기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막연하게 산다.
50.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잘못 선택하고 사는 자들’이나 ‘잘 선택하고 사는 자들’이나 ‘육’만 박서는 모른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선택을 잘한 자들>은 번창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시들고 쇠하게 된다.
51.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언니 마르다는 ‘음식 대접하는 일’을 선택했고,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할 자’를 선택했다.
52. 월명동의 소나무들도 <선택한 것들>을 키워서 ‘거목’이 되게 하고 ‘표상 솔’이 되게 했다.
53. <잔디성전 위 표상 솔=분체솔>과 <회골 표상 솔=치타솔>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키웠다. 이 두 소나무는 같은 날에 솔 씨가 떨어져서 나고 자라듯 ‘크기’가 똑같다. 성전 안에서는 <표상 분체솔>이 제일 크고, 성전 밖에서는 <표상 치타솔>이 제일 크다. ‘선택을 잘해서’다. 하나는 ‘하늘의 성자’가 택하셨고, 하나는 ‘그 육’이 택했다. <분체솔>은 ‘신랑 상징’이고, <치타솔>은 ‘신부 상징’이다.
54. 한번은 작품 돌을 사는데, ‘높이 3m, 넓이 2m짜리 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느냐고 물었다. 하나님은 ‘높이 2.5m, 넓이 1m짜리 돌’이 좋다고 하셨다. 그러면 나도 ‘그 돌’을 택하겠다고 했다. 그 돌과 함께 돌 다섯 개를 더 사 왔다. 그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돌 다섯 개를 다 합쳐도 ‘이 작은 돌 하나’만 못해.” 하셨다. 그러고는 밤새도록 왜 좋은지, 무엇이 좋은지 이야기해 주셨다. 그 돌의 이름은 ‘생명나무’라고 지어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핵을 상징한 것>은 작아도 크다. 의미 있고 사연 깊은 것이 크다. 또 자기 자화상 작품이 자기에게는 최고다.” 하시며, ‘작품 보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제가 고른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요?” 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상대성으로 좋아하지.” 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돌>은 ‘핵’으로 두고, <나머지 돌들>은 ‘밑돌’이나 ‘배경 돌’로 세워 ‘메시아 앞에 세례 요한 격 작품’으로 묶어 놓고 같이 빛나게 했다. 결국 ‘전체’가 같이 빛나게 되었다.
55. 만일 이날 ‘다른 돌’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돌들’도 다 못 사 오고 ‘못한 돌 하나’만 사 왔을 것이다. 선택할 때는 기도하며 삼위께 맡기고, 삼위의 생각으로 하길다.
56. 교회 성전을 선택할 때도 ‘핵적인 것’을 잘 선택해야 ‘다른 것’까지 잘된다. ‘그 하나’로 인해 ‘거기에 해당되는 것’까지 다 얻게 된다.

57. <핵>을 ‘최고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 <나머지 해당되는 것>도 다 얻게 된다.
58. 하나님은 ‘월명동 옛 생가 200평 땅’을 선택하여 사게 하셨다. 그로 인해 ‘다른 땅들’도 사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59. 성전도 ‘핵적인 것’을 잡으면, ‘그에 해당되는 주변의 것’도 같이 따라와 사게 된다.
60. 나무도 ‘핵적인 것’을 사니, ‘핵과 연결된 주변의 다른 것들’도 모두 사 오게 됐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한 작품이다.” 하셨다.
61. <핵>을 잡으면, ‘핵과 연결된 주변의 작품들’까지 다 얻는다.
62. 악인들은 <악과 불의의 핵>을 잡고 행하니, ‘그 주변의 악과 불의’까지 다 들어붙어서 10배, 100배 더 고통받게 된다.
63. <핵>이 무엇인지 알아라. <하늘의 핵>은 ‘절대자 삼위일체’이시고, <땅의 핵>은 ‘삼위가 보낸 구원자’다.
6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이 ‘핵’이다.
65. <그 일에 합당한 자>가 ‘핵’이다.
66. <그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핵’이다.
67. 생명도 ‘핵’ 먼저 전도하면 ‘거기에 속한 자들’까지 다 전도된다.
68. 전쟁 때도 ‘핵’을 치면 ‘나머지’도 다 치게 된다.
69. <선택을 잘한 자들>은 ‘선택을 잘못된 자들’을 보고, “왜 저들은 저렇게 선택했지?” 하고 이해를 못 하며 안타까워한다.
70. <자기 마음>에 따라 선택한다.
71.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자기 마음’에 따라 <더 못한 것>을 선택한다.
72.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면 ‘사망 지옥’으로 간다고 말해도, <자기 마음>에 따라 ‘우상’을 선택하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간다.
73.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따라 각자 선택하고, 상대를 보고 서로 말하기를 “저들은 왜 저것을 선택했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싫어하고 반대한다.
74. 배우자를 선택해도 “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을 선택했지? 정말 선택을 못 한다.” 한다.
75. <자기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 모양이나 형상보다, 더 갖춘 것보다 ‘자기 마음이 간 것’을 선택하게 된다.
76.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에, 각자 ‘자유’로 선택하게 두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 주고 알게 해 주어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다.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은 좋아하는 대로 천국이다.
2.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면, '차가운 눈보라 같은 환난'을 이긴다.
3. 마음과 생각은 '물'과 같아서 뜨겁게 하려면 뜨겁게 할 수 있고, 차갑게 하려면 차갑게 할 수 있다.
4.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익히려면 먼저 '물'을 뜨겁게 끓이듯이,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고서 하여라.
5. 차가운 손과 발과 몸을 뜨겁게 하면, 금방 따뜻함을 느낀다.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면, 금방 느낀다.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해야 평소보다 5~10배 강해지고, 그 힘과 열로 하는 일도 잘된다.
6. 기도하여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마음이 뜨거울 때, 실천하여라.
7.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고 하면, 할 일도 하고 싶지 않다.
8. 운동할 때도 먼저 몸을 풀고 뜨겁게 하고서 해야, 근육통 등 각종 문제가 안 생긴다. 전도나 강의나 증거 등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해야 문제없이 잘된다.
9. 어느 때는 일을 하다 보면 열이 나서 마음이 뜨겁게 되어 잘되기도 하니, 실천하여라.
10.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고 행한 일>은 생각의 차원이 낮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 고로 마치 뜨겁게 데우지 않은 철판에서 익힌 음식이 맛없듯, 해 놓은 일도 맛이 없다.
11. 전도도 강의도 '성령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할 때' 제대로 된다.
12. 쇠도 용광로에서 뜨겁게 하지 않으면, 쇠가 녹지 않아서 원하는 형상을 못 만든다.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고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된다.
13. 차원을 높이려면, 마음을 더 뜨겁게 하고 더 많이 실천해야 된다.
14. 더 좋은 물건을 사려면, 돈도 더 주고 노력도 더 해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15. 전보다 더 좋게 만들려면, 더 노력하고 투자하고 몸부림쳐야 된다.
16. 인생은 '전보다 더 차원 높여 이상세계를 향해 가는 맛과 희망과 보람'으로 살아간다. 고로 고생돼도 차원 높여 행한다.
17. 기성은 성경말씀대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약속받고 전심으로 충성하며 살아왔다. 메시아가 재림하면 그를 맞고 쓰려고, 또 새 역사를 맞고 더 잘되려고, 빛을 내서 성전도 크게 지어 놓았다. 교회마다 거대하게 지어 놓았다. 새 역사를 맞기 위해 신부 단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새 기성은 처녀, 총각들이 늙어서 중년이 되고, 더 늙어서 노년이 되고, 지은 교회들은 준비해 놓고 쓰다가 낡아지고 있다. 요즘도 기성은 새 건물을 지어 놓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새 역사>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같이, 신약시대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아서 역사를 펴 나간다. 그가 삼위와 함께 행하신다. 도적같이 하신다. 그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새 역사>를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니, 다른 자들은 모른다. 같이 살아도 말을 안 하니 모른다. <구 역사>나 <새 역사>나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니, 오직 '삼위만 아는 지혜

와 지식'으로 '구시대가 준비해 놓고 얻지 못한 것'을 <새 시대>에 주시면서, '새 시대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 쓰며 <새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

18. <준비한 자>가 몰라서 못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제대로 못 쓰니, 하나님의 심정이 상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보낸 자'를 데리고 '시대의 뜻을 좇는 자들'에게 주어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는 데' 쓰게 하신다.

19.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섭리사를 위해 해 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

20. 한 차원 낮은 짐승이 사람이 행한 일을 알기 어렵듯이, 한 차원 낮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기는 어렵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기다. 삼위께서 하신 일을 깨닫기다. 그러나 알려고 해야 알게 된다.

22.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를 원하면, 합당하면 알도록 역사해 주신다.

23. <자기밖에 모르는 지혜>로 주께 고하고 주와 함께 행해라.

24. 삼손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혜의 비밀을 여자에게 말해서 뜻이 깨졌고, 결국 자신도 죽었다.

25. 항상 '준 자'와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처음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좋아하게 된다.

26. <자기 최고의 목적>을 이루고 '잔치'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27. <자기밖에 모르는 지혜>를 보화 찾듯 찾아라!

28. 돈도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야, 쓸 때도 힘들게 번 만큼 잘 조정해서 쓰게 된다. 만사의 모든 것도 그러하고,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29. 큰 불덩어리를 한 곳에만 쓰지 않고 밥하고 국 끓이는 데도 쓰고, 고기 굽는 데도 쓰는 것이 지혜이듯, 돈도 그렇게 써야 10배 더 가치 있게 표 나게 쓰게 된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을 한 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말고 100m 경주하듯 끝까지 해야 된다.

2. 할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생각이 끊겨서 안 되고, 몸도 다시 하려면 잘 안 된다.

3. 시냇물 흘러가듯 실천하기다!

4. 할 때 해야 잘된다.

5. 잠언 하나를 써도 처음에 생각났을 때 한 문장을 다 써야, 생각에서 한 문장이 쭉 나와서 '한 편의 깊은 작품'이 된다. 쓰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앞뒤 문구가 안 맞기도 하고, 뜻이 어긋나기도 한다.

6. 잠언은 나무와 돌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놓은 것 같아서, 쓸 때 써야 된다. 모든 일이 이리하다.

7. 한 잠언을 쓸 때는 마치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것을 한 번에 하듯 해야 된다.

8. 나무에 못을 박을 때 중단했다가 다시 박으면, 못이 휘어진다. 박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한 번에 하면, 못이 흔들림

없이 나무에 쭉쭉 들어간다.

9.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대한 생각’이 솟아난다. 그런데 중단했다가 다시 하면, 첫 번째 생각이 사라져서 연결이 안 된다.

10. 뇌의 생각은 끊어졌다가 다시 생각하면, 방향도 차원도 처음과는 달라진다.

11. 글자를 써도 한 번에 완성해야지, 한 자를 쓰다가 중단하고 다시 쓰면 매치가 안 된다.

12. 기도도 그러하다. 영계에 들어가다가 중단하면, 다시 들어가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

13. 생각에 열이 나고, 생각이 집중되고, 몸이 풀렸을 때, 그때 해 버려야 된다.

14. 전도, 관리, 기도, 찬양, 말씀도 할 때 해야 된다. 마치 총을 겨누었을 때 방아쇠를 당겨야 하듯, 집중됐을 때 쉬지 말고 해야 된다. 만사가 그러하다.

15. 집중됐을 때 하면, 거기에 대해 연속해서 생각난다.

16. 자기가 자기를 미치게 한다. 자기 주관을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미치게도 하고 우울하게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약이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미치게 하는 생각을 절제하고 행해라.

17. 마음과 생각을 뜨겁고 강하게 하여 자기를 다스려라.

18.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면, 우울증이 사라진다. 뇌에 대해 그리 이야기해 줘도 말씀대로 안 하니, 우울증이 온다.

19. 뇌는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여 반응을 보인다.

20. 기쁘게 생각하면 뇌신경도 기쁘게 느끼고, 기쁜 쪽으로 세포가 작동을 하게 된다.

21. 자꾸 “두렵다. 무섭다.” 하면, 뇌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 생각하는 대로 뇌에 저장되어 반응을 보인다.

22. 자꾸 “나는 행복하다. 기쁜 사람이다.”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뇌가 그렇게 반응하고 작동되고 그런 생각이 뇌에 가득 차서 머리가 안 아프다.

23. 마음에서 걱정하면 아프듯, 마음에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뇌신경도 바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24. <뇌>는 ‘살’과 같다. 살에 뜨거운 것을 대면 화상을 입어 고통을 받듯이, 뇌도 생각으로 나쁘고 우울한 것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충격 받고 화상 입듯 한다. 고로 불안·초조·공포·두려움·우울함에 시달리게 된다.

25.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여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미워하고 해하고 싶을 때, 혹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혈기가 일어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엄히 책망하고 말로 채찍질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고 사정을 고하면서, 분노의 대상을 두고 행한 대로 갚아 달라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손을 대어 행한 대로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행위대로 정말 무섭게 손대신다. 원수 갚는 일은 자기가 하면 하다가 죽기도 하고, 혹은 분노와 혈기로 행한 것의 100배, 1000배, 10000배, 100만 배까지 받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즉시 그 일에 착수하신다.

26. 전능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고하여라. 사연을 말하여라. 행한 대로 처리해 주신다.

27. 전능자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각종 자연 만물’로 손대시고, ‘말씀의 검’을 대신다.

28. 한번은 어떤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기에 성령님께 고했더니, 일을 저질러서 형벌받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셨다.

29. 한번은 어떤 사람이 말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두렵게 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 보셨지요? 행한 대로 혼내 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운동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골이 땅에 부딪혀 눈동자가 돌아가면서 쓰러져 있었다. 고무줄 당기기를 하는데 무식하게 힘껏 당기다가 고무줄이 툭 끊어져서 3m 뒤로 나가떨어진 것이다. 마른 땅인데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부딪혔는데, 골이 너무 세게 충격 받아서 치명적이었다.

30. 한번은 어떤 사람과 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말하며 구시렁거렸다. 그래서 나도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했다. 그랬더니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대꾸했다. 전능자 하나님을 두고, 존칭도 안 쓰면서 함부로 말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 말을 다 듣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사정을 고하고, 혼내 달라고 했다. 정말 무식한 말을 한다고 하며 고했다. 그 후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나왔다. 알고 보니,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고 했다. 설사병에 걸려서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방같이 쓰면서 살고 있었다. 너무 심해서 운동을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꿈에 보니, 그 남자의 이가 다 빠지고 입이 부르터 있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31. 누가 두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거나 무시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사정을 고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게 해라. 구하면, 하나님이 착수하신다.

<2017년 3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만 아는 지혜>다. 그 지혜를 그대로 쓰면 모두 알게 된다. 방법을 달리하여 써야 <자기만 아는 지혜>로 쓰게 된다.

2.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만이 아는 지혜’를 주신다.

3. <받는 자만 아는 지혜>다.

4. 하나님은 ‘받는 자’만 알게 지혜를 주어 쓰게 하신다.

5. 주인이 아니면 ‘잠시 보관하는 자’같이 쓰인다.

6. <주신 자>만 알고 <받은 자>만 알고 ‘뜻’을 이루며 쓴다.

7.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주면 사탄도 악인들도 빼앗아 가니,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혜>로 먼저 ‘그림자 같은 것’을 주시고, 사탄이나 악인들이 빼앗아 가면 사랑하는 자가 혼자 남았을 때 ‘진짜 주고자 했던 것’을 주신다.

8. 사탄과 가인과 행악자들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타고 올 차’를 보내면, 사탄도 가인들도 행악자들도 그 차를 같이 타 버린다. 그들이 그 차를 타고 가 버린 후에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했던 차’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어 성령과 성자와 함께 타고 오게 하신다. 역사가 그러했다. 하나님은 ‘후자 역사’를 하셨다.

9. 항상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사탄·마귀·귀신들과 불의한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같이 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주신 것’을 빼앗아 간다. 고로 하나님은 ‘처음 것’은 모조품으로 내어 주고, 후에 다 간 후에 사랑하는 자만 남으면 그때 ‘진실한 사랑의 역사’를 펴신다.

10.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쥐새끼’를 주니, 사탄과 행악자들이 빼앗아 간다. 그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치타 새끼’를 주어 기르게 하신다. 처음에는 ‘치타 새끼’인지 모른다. 키워 보니 ‘치타’가 되어 뛰어 다녀서, 그때 안다.

11. 사탄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먹이고 키워도 크지를 않고 무섭게 송곳니만 나서 물어 대며 쥐가 하는 일만 한다. 결국 쥐와 같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기회가 오기를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휴거의 혼인 잔치를 하고 있다.

12. 사탄은 ‘처음 것, 가인’을 빼앗아 갔다. 하나님은 ‘다음 것, 아벨’을 데리고 역사하셨다.

13. 사탄은 ‘에덴동산의 첫 아담’을 타락하게 하여 빼앗아 갔다. 하나님은 ‘후 아담 예수님’을 데리고 새 역사를 행하셨다. 사탄이 또 ‘예수님의 육신’을 빼앗아 가니,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또 세워 육도 영도 안 뺏기고 정녕코 <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를 이루셨다.

14. 사탄이 무지한 자들과 행악자들을 데리고 ‘신약의 아담과 하와 격의 대상’을 빼앗아 갔지만, 새 시대에 ‘성약의 아담과 하와’를 낳고 길러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천주 앞에 두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15.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혜>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모적’을 이루고 끝내셨다. 따라온 자들만 이것이 ‘창조 목적, 휴거’라는 것을 알았지, 사탄도 불의한 자들도 반대자들도 몰랐다.

16.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지혜>를 가지고 과거같이 사탄과 무지자들과 반대자들과 구시대가 막지 못하게 하셨으니, 곧 이 시대에 여러 사람들을 ‘참’과 섞어서 행하게 놔두고 ‘참’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헛갈리게 하는 자들, 들러리 격인 ‘이단들’은 보낸 자와 함께 공의롭게 심판해 버리셨다.

17. 심판을 받았어도 ‘육은 표가 안 나는 영의 심판’도 있다.

18. 어떤 자들은 ‘육은 소멸로 심판받고 영을 살리는 심판’을 받았다.

19.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여름철 잡초나 가라지처럼 그냥 놔두신다. ‘곡식과 열매’를 기대하며 잡초나 가라지가 그냥 크게 놔두신다. 행여 잡초나 가라지를 뽑다가 ‘크고 있는 곡식과 열매’까지 건드릴까 해서다. 그러다 ‘곡식과 열매’다 크면 거두고 ‘잡초나 가라지’는 모두 불사르니, 미쳐 뛰게 된다. 오직 ‘곡식과 열매’만이 주인과 함께 잔치하며 누린다. 세상 끝에는 ‘곡식과 열매 격인 의인’도 ‘잡초나 가라지 격인 악인’도 그러하다.

20.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는 안 주시고 ‘불의한 자, 행악자들’에게는 주시어 갈 길을 가게 하신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인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맞아 <영원한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21. <불법한 자, 행악자들>은 환상에 사로잡혀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자들>은 천 리 길에 한 명씩 모아서 6000년 만에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하신다.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은 ‘현실’과 연결해서 푸는 것이다.

2. 꿈에 별통을 들고 다니니까 별이 쫓아와서 쏘려고 했다. 생시에 기도할 시간에 잠에서 깬다가 기도 안 하고 또 자면, 이와 같이 사탄이 온다. <사탄이 올 조건>을 주면, 사탄도 인사탄도 온다 함이다. 이와 같이 <꿈>은 ‘생시, 곧 현실’과 연결해서 푸는 것이다.

3. 성령님은 항상 잠을 깨워 주신다. 하늘과 대화하라 함이다. 깨워 주셨는데도 안 일어나면, 그때는 떠나가신다.
4.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도와줬는데 안 하면, 성령님이 제재를 받으시니 반응이 달라진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시키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제재받지 않고 행하신다.
6.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시키시는 대로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다음 단계로 거침없이 행하신다.
7.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만물로 계시하여 확실히 알게 해 줘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목적'을 두고 가다가 중단한 격'이 된다. 고로 그다음에는 성령과 주가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모른다. <실천자>만 안다.
8. 성령과 주가 함께하시든지, 혼자 있든지 '실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
9. 실천하면 '마른 땅을 파는 것'과 같아서 결국 '물'이 솟는 표적이 일어난다.
10. 할 일이 없다고 놀지 말고, 할 일을 생각해라. 생각하면 생각난다.
11.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실천>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다.
12. 자기 할 일을 실천해야 존재한다.
13. 어느 때는 빛을 잡듯 실천하고, 어느 때는 거북이같이 차근차근 실천하고, 어느 때는 산토끼를 잡듯 실천하고, 어느 때는 산돼지를 몽둥이로 때려잡듯 조심하, 그러나 담대히 실천해라.
14. <실천>은 희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흥분도 일으켜 사랑을 하듯 하게 해 준다.
15. 무엇이든 자기가 극적으로 좋아하며 원해서 행하면, 뇌신경이 흥분되어 기뻐하며 마치 샘물이 솟듯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된다.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6. 형제를 미워하여 해를 주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것보다 더한 대가'를 받게 된다.
17. 가령 형제를 미워하여 '독극물'을 먹여 죽였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자기는 '독극물 건더기를 마시는 대가'를 받게 된다.
18. 형제에게 잘못이 있어도 용서하고 가라. 하나님이 저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자기가 심판자가 되지 말아라.
19. 보낸 자도 직접 심판하지 않고 예언만 하고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 것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긴다.
20. 어떤 지혜 없는 자는 자기를 극적으로 괴롭히던 원수가 자기 행위대로 받고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화를 못 참고 자기가 원수를 죽이고 감옥에서 지옥 생활을 하며 사형수의 길을 간다. 원수가 극적으로 괴롭혀도 참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 영으로도 육으로도 반드시 행위대로 받으니, 네가 심판자가 되어 도리어 해를 당하지 말아라.
21. 한번은 원수가 나를 극단적으로 괴롭혀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계속 참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원수가 함정에 빠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의 단계에 이르렀다. 그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됐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와달라고 했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내 생명을 구하듯 구해 주었다. 하나님과 성

령님과 성자께서 이를 보고 기뻐하시며 “정말 잘했다. 네가 두고두고 잘했다 시인하며 기뻐하리라. 이로 인해 내가 축복을 주리라.” 하셨다. 그 말씀대로 정말 축복을 받았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 드리니, 내게 축복이 되었다. 하나님은 또 “원수가 네가 그리 행한 것을 몰라도, 앞으로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 후 사람을 시켜 그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 주니, 원수가 감동을 받아 다른 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도왔고, 오해도 풀었다. 그는 “이제 나의 원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해를 주는 자입니다.” 했다.

22. 원수가 주리면 먹이고, 미워하면 사랑해라. 그가 너를 원수로 대해도 너는 원수로 대하지 않으면, 너는 사망에서 나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니라.

23.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실천’을 하여라.

24. 원수를 미워하여 때리고 죽여서 어떤 자는 사형수가 되고, 어떤 자는 수십 년씩 옥살이를 한다.

25. 순간 화가 나서 행하고, 계획된 화를 내며 행함으로 자기 화를 푼다. 1분 화가 나서 행한 것으로 짓값을 ‘하루’ 받으면 1,440배 받게 되고, ‘한 달’이면 43,200배 받게 되고, ‘1년’이면 525,600배 받게 되고, ‘10년’이면 5,256,000배 받게 되고, ‘30년’이면 15,768,000배 받게 된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지은 시간의 수백, 수천, 수만 배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영으로 셀 수 없이 오랫동안 사망에 처해 고통’을 받게 된다. 회개하면 사망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영은 회개하지 않아서 수조 배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또 <죄를 안 지으려고 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원수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깨달아라.

26. 살인한 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1~2분 만에 혈기가 나서 죽었다고 한다. 혈기가 나니 초인같이 힘이 솟아나 죽었다고 한다. 1~2분 혈기로 행하고, 그 후 수백만 배, 수천만 배 짓값과 고통을 받는다. 화를 못 참고 행한 결과가 참으로 끔찍하다.

27. 선한 일도 극적인 것은 1~2분 행하고 수년, 수십 년 동안 유익이 되고 복을 받고 살게 되고, 영으로는 수조 배 축복을 받게 된다.

28. <극적인 선한 일>이란 ‘하나님이 시키신 극적인 일을 행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못 한 의로운 일을 해낸 것’이고, ‘생명을 살리고 주를 증거한 것’이고, ‘주 안에서 목숨 다해 행한 것’이다. 순간 극적으로 행했는데, 그로 인한 축복은 의를 행한 시간에 비하면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 수백만 배나 받는다.

29. 순간 성령과 하나 되어 1분 만에 한 사람을 극적으로 전도했다. 그로 인해 ‘평생 주의 몸으로 될 자’가 나왔고, ‘성령의 상징체, 복직된 하와’로서 ‘하나님의 한을 같이 풀어 줄 자’가 나왔다. 그로 인한 축복과 유익은 영으로도 육으로도 수조 배다.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꿈>에서 보고 <생시>에서 실천하면 얻게 된다.

2. <꿈>에서 어떤 일을 하려는데 아쉽게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잠에서 깼다. 아쉬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시>에 할 일을 하면, <꿈>에서 원했던 대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 이루어진다. <꿈>에서 깨도 <생시>에 연속 진행된다.” 하셨다. 그래서 기도하고 ‘신령한 잠언의 말씀’을 받았다. 꿈에서 아쉽게 하고 깼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 안에서 실천해라. 그러면 <꿈>에 아쉬웠던 것이 <생시>에 이루어진다.

3. <꿈>에 한 호텔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다. 잠시 후에 음식이 나왔는데 ‘겨자를 탄 스프’가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시킨 음식이 아닌데 누가 시켰냐고 투덜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먹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내가 안 시킨 것이라고 하며 거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다가 호텔에서 나왔다. 그 음식을 못 먹고 꿈에서 깨어 아쉬웠는데, <꿈>이 <현실>과 연결되어 ‘새벽에 말씀을 받는 계시’였다. <꿈속에서 내

가 시킨 음식>이 ‘현실에서는 말씀’이었다. 처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보통 잠언’이 왔는데, 이것이 곧 ‘꿈에서 울며 겨자 먹듯 먹은 음식’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 잠언은 단호히 거부하고, 다시 깊이 기도하여 ‘깊은 잠언’을 받았다. 그 잠언이 ‘꿈에 내가 시킨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이와 같이 ‘자기 마음에 안 맞는데 시키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 말고, 자기에 맞게 음식을 자기 돈 내고 시켜 먹듯이 의사 표현도 확실히 하고 생활도 행실도 하면서 ‘하나님도 주도 자신도 원하는 것’을 해라.

4. <꿈>에 ‘자기가 시킨 음식이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은 음식’은 <생시>에 ‘내키지 않는데 울며 겨자 먹듯 억지로 한 생각과 행실’을 계시하여 보여 준 것이다.

5. 여유 있게 하면 마음 졸이지 않는다. 시간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다.

6. 시간을 쓰는 것도, 기도도, 각종으로 행할 일들도 쫓기지 말고 풍부하게 여유 있게 해라.

7. 시간을 쓸 때 시간의 톱니바퀴를 못 맞추면, 늘 쫓기면서 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늘 뇌와 생각이 마음 졸이면서 하는 쪽으로 굳어져서 매일 불안하게 살게 된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완전히 개조하여라.

8. 하나님도 성령님도 “신적 차원으로 제대로 살아라.” 하시며, 그렇게 사는 자와 동행하신다.

9. 제때 척척 제 할 일을 못 하고 편하기만 하려고 게으르게 사는 자는 ‘원시적 삶을 사는 자’다. 고치지 않으면 <자기 삶>이 결국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 생활>이 괴롭게 돌아간다. 왜 ‘자기 개혁과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10. 제대로 못 하는 자는 ‘쇠고랑에 묶여 사는 자’다.

11. <자기가 행할 것>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과감하고 담대하게 행하고, ‘사망의 삶’에서 나와서 더 자유롭게 살 아라. 이것을 행함으로 ‘차원 높은 구원’을 얻고, ‘휴거’되고, ‘얻을 것’을 얻고, ‘잔치’하게 된다.

12. 게으르고 무지한 자는 때가 지나서 그제야 정신 차리고 된다. 뒤다 보니, 앞에 ‘자기가 타야 될 차’가 달려가는 것이 가물가물하게 보인다.

13.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기회를 놓치고 투덜대며 찬비를 맞고 걸어가느냐. 개조하고 고치면, 얼마나 좋은지 그제야 안다.

14. 어떤 자는 실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속이 터지게 하고 지치게 한다. 그러다가 뜨끔한 일을 당하고는 충 격 받고, 그제야 한다.

15. 절대 실천해야 절대 차원을 높여서 ‘그 차원의 것’을 행하여 ‘이전 차원에서 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

16. 모든 이치는 동일하다.

17. 좁은 소로 길을 가는데 잡초를 이리저리 피하며 가시나무의 가시에 찔릴까 마음 졸이며 가면서, 거기에 온 마음이 쏠리고 눈이 쏠려서 소로 길 좌우의 환경도 구경하지 못하고 마음의 기쁨을 잃고 가지 말아라. 당장 집에 가서 낫을 가져다가 잡초를 깎고 가시나무를 쳐내라. 그리고 갈 때마다 편히 가면서, 기뻐하며 찬양도 하고 경치를 즐기며 살 아라. - 주는 이같이 살아왔다. 너희도 그리하여라.

18.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할 일을 척척 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같이 지저분한 인생도 없다. 이런 자는 ‘제때 쓰레 기를 안 버리고 사는 자’와 같아서 그 집이 퇴락해 보이게 되느니라.

19. 눈에 든 가시를 빼듯이, ‘네 행실의 가시들’을 빼내라.

20. <자기 그릇된 행위>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21. 눈에 티나 가시가 들어가면, 타인은 그 고통을 모른다. 자기가 뻔 때까지 고통을 당하니, 자기가 빼야 된다.
22. <죄>는 ‘눈에 든 가시’와 같다. 어서 죄를 회개하여 편히 삼위를 사랑하며 삼위와 가까이 살아라.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잘 만들기, 잘 사용하기’다.
2. <주신 자>와 같이 만들고 같이 써야 제대로 만들고 쓴다.
3.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목적을 두고 쓰기다.
4. 하나님은 <작은 골짜기>를 개발하시고, ‘보좌’같이 사용하신다.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5. 월명동의 다리골, 앞섭골, 석막리같이 골짜기가 크면, ‘형체’가 한눈에 안 보이고 자연의 ‘형상과 모양’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마을, 혹은 관광지, 혹은 공원으로 사용하신다.
6. 형체가 있어도 거리에 맞게 형성되어야 한다.
7. 월명동은 중앙에서 사방 100~150m라서 한눈에 보이고, <자연의 형상>이 한눈에 보인다. <자연의 형상>을 이루기에 크기가 딱 맞다.
8. <사람>도 크기가 맞아야 ‘형상’이 보이듯, <자연>도 크기가 맞아야 ‘형상’이 제대로 잘 보인다.
9.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수영장, 스키장도 ‘크기’가 맞아야 하듯 <자연의 지형>도 ‘크기’가 맞아야 그 형상으로 보인다.
10. 과일이 크면, 과일 같지 않은 것이다.
11. 사과가 호박같이 크면 사과 같지 않다. 월명동도 너무 크면 ‘백보좌’ 같지도 않고, ‘초승달’ 같지도 않고, ‘여자 자궁 형상’ 같지도 않을 것이다.
12. 사람의 눈과 코가 너무 크면, 눈 같지 않고 코 같지 않다고 한다. 자연의 형상도 그러하다.
13. 분재 솔이 크면, 분재 솔로 안 본다.
14. <옷이 날개>라고 하는데, 이는 ‘거죽 날개’다. <인간의 실제 날개>는 ‘양손’이다.
15. 시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듯, <시간>을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안 되느니라.
16.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라도 ‘가만히 있는 자’는 ‘시간을 눈으로 보면서도 잃어버린 자’니라.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찾기, 고르기, 만들기, 쓰기다.
2. <좋은 것>을 골라서 선택해라.

3. <좋은 것>을 찾아서 골라야 ‘좋은 것’을 얻는다.
4. 자기 주변에서 최고의 것을 골라야 ‘그 주관권에서 최고의 것’을 얻게 된다.
5. <좋은 것>은 높이 있어서 그만큼 어려움을 겪으며 도전해야 얻게 된다.
6.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 중에서 ‘좋은 것’과 ‘좋은 장소’를 고르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삼위를 기쁘게 하고 사랑하는 자’를 골라서 그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좋은 장소’를 깨닫게 하시고, 그와 같이 사연을 이야기하고 뜻을 펴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7.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택한 땅’에 ‘선택한 자들’을 오게 하여 ‘뜻’을 펴셨다.
8. <좋은 땅, 좋은 존재물, 좋은 사람>을 고르고 선택하기다.
9. <좋은 것>을 찾아다니다가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그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 때, 그것을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한다.
10. <생활의 보화, 만물의 보화>는 봐도 ‘깨닫는 자’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봐도 뭐가 좋은지 모른다.
11. 만물이든 사람이든 ‘좋은 것’을 골라서 선택하고 ‘삼위의 것’으로 만들어 삼위를 모시고 사랑하며 살 때,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이와 같이 삶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살면, 늘 기쁨·사랑·감격에 만족하다.
12.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삶>이 ‘최고로 좋고 좋은 보화’다. 이 삶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기쁨도 사랑도 감격도 만족도 지속된다.
13. <큰 보화>는 하늘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큰 자’에게 주신다.
14. <큰 자>란 ‘창조주의 창조의 가치와 창조주가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창조주의 뜻을 알고 창조주를 모시고 섬기며 사는 자’다.
15. 만물들 중에서도 ‘좋은 것’이 있고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좋은 삶’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좋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인해 ‘좋은 것’을 얻게 된다.
16. 형상적 중에서도 ‘그 면의 최고로 좋은 것’이 있고, 환경도 ‘그 면의 최고로 좋은 장소’가 있고, 사람도 ‘그 면의 최고의 사람’이 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센터별’로 보고 ‘개성’으로 보고 ‘가치’로 따진다. ‘개성의 왕으로서 최고들’이다.
17. 환경도 ‘상천하지에서 최고로 좋고 아름답고 신비한 곳’이 있듯이, 사람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이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 위에 ‘상천하지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영원한 존재자’가 있으니,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18.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조건을 세워 <좋은 것>을 얻고 모든 자들에게 보게 하니, 어떤 이는 “좋은 것이다.” 하고, 어떤 이는 “보통이다.” 하고, 어떤 이는 “여기는 좋은데, 저기는 보통이다.” 한다. 같은 것인데 <보는 자의 수준>에 따라서 ‘보는 차원’이 다르다.
19. <좋은 것>이라도 무엇이 좋은지 알아야 거기에 눈이 떠져서 ‘이래서 좋구나.’ 하게 된다.
20. 작품도 ‘그 면의 최고의 것’이 있다. 한 작품에 모든 것을 다 담으면 ‘본 특성’을 못 담는다.

21. 누구의 구상이냐에 따라서 값도, 아름다움도, 신비함도, 웅장함도 달라진다.

22. 어떤 것은 눈에 확 띄게 좋지만, 어떤 것은 눈에 확 띄지 않고 그 면의 특성만 가지고 있어서 좋은지 잘 모른다. 이런 것은 마치 ‘약수’나 ‘특수한 성분을 가진 보약’ 같아서 눈으로 봐도 ‘형상’이 보통이다. ‘성분’이 좋은 것이라서 눈으로 봐도 좋은지 모른다. 사람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은 ‘형상’에 아름다움도 웅장함도 신비함도 없다. 그런데 ‘특성과 재능’은 다른 자들보다 뛰어나 하늘까지 치솟는 좋은 점이 있다.

23. <좋은 환경>도 모르는 자가 보면, 보통으로 본다.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만 생각하면서,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24. 월명동은 기암절벽도 아니고,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곳도 아니라서 그냥 걸만 보면 ‘천하의 명소’같이 안 보인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곳’이라고 하시며, 월명동을 택하시어 ‘1000년 동안 역사를 펼 하나님의 궁’으로 만드시고 ‘땅의 하나님의 보좌’로 두셨다. 그냥 보면 모르지만 ‘각종 특성의 형상을 갖춘 뜻 있는 곳’이다.

25. 월명동은 ‘천 년의 도읍지가 된다는 <초승달 형상>’이며, ‘풍수지리에서 최고로 치는 <자미원 장소>’이며, ‘생명이 잉태되는 <여자의 자궁, 금단의 열매 형상>’이며,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백보좌 형상>’을 갖춘 장소다. 또한 ‘민족적, 세계적으로 큰 자가 난다는 <전설>이 흐르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고로 치는 존재 형상인 <사람의 형상>이 주변 산들에 일곱 개나 갖춰진 장소’다. 또한 ‘메시아와 연결된 <별자리 형상>이 전체 지형으로 크게 하나’ 이루어져 있고, ‘그중의 한 산봉우리에서 다섯 개의 줄기가 흘러내려 하늘에서 보면 <별 모양>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1000년 동안 도읍지가 된다. 진짜 그런 곳이 있나? 전설과 신화만 흐르는 것인가? 거기서 누가 태어났을까? 시작했으면 반드시 실상이 밝혀질 것이다.” 한다.

26. 하나님은 ‘만든 형상’대로 쓰신다. 마치 눈은 보는 데 쓰고, 코는 숨 쉬는 데 쓰고, 귀는 듣는 데 쓰고, 입은 먹고 말하는 데 쓰는 등 각 지체마다 목적하고 만든 대로 쓰듯이, 모든 장소도 환경도 ‘만든 형상’대로 쓰신다. <월명동>도 ‘만든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장소’로 쓰신다.

27.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로 만든 위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쓰시고,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자’가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신다.

28.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제야 ‘거기서 태어난 자, 곧 시대에 택한 자’에게 구상을 주어 하나님의 구상대로 그 장소를 만들게 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드러내어 눈에 띄게 하신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창대하게 역사를 펴 나가신다.

29. <환경>은 ‘신부’ 같고, <거기서 태어난 자, 주인>은 ‘신랑’ 같다.

30.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환경>과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같다고 표현하셨다.

31. 아름다운 여자라도 신랑이 주인이 되어 단장해 줘야 ‘미’가 드러나고 ‘신비한 모습’이 드러나, 모두 보고 “아름답다. 전설의 여자다.” 하고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전설의 땅, 자미원>도 거기에서 ‘주인’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개발하고 만들고 꾸며야, 그제야 ‘초승달 형상’이 보이고 ‘백보좌 형상’이 보이고 ‘자미원 길지’가 되어 모두 보고 ‘신화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고로 주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장소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못 찾고, 전설만 흐른다.

32. <좋은 곳>이라도 <전설의 땅>이라도 기본만 되어 있고, ‘주인’이 태어나서 꾸미고 단장해야 그제야 ‘형상’이 보여 모두 인정한다. 이와 같이 <큰 인물>이 태어났어도 성장하면서 배우고 행하면서 나타난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로부터 나고, <땅의 육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으로 낳아야 된다.

33. <큰 인물>도 배경을 만들어서 에워싸 줘야, 그제야 ‘그 면의 왕’으로 보인다.

34. <황금 같은 전설의 수석>도 처음에 그냥 보면 모른다. 가져다가 그 수석을 받쳐 줄 ‘받침대’를 만들어서 빛나게 해 놔야, 그제야 그에 얹힌 전설이 생각나면서 “이것이다!” 감동받고 눈이 떠져서 기뻐하며 시인한다.

35. <하나님이 보낸 자>도 ‘예비한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하게 하시고, ‘시대를 따르는 자들’을 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이루신다.

36.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포하신 땅>에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태어나게 하신다.

37. 한국에는 ‘천 년 도읍지, 길지, 자미원’이 있다며 민족의 전설이 흘러왔다. <사람이 보는 육적 세계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세계 장소>가 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 보고 “이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대로 보시고 ‘장소’를 정하시어,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1000년 역사>를 펴 나가신다. 하나님은 ‘이전 역사 때 보낸 자의 육신’이 다시 오지 못하니, 시대에 따라 ‘새 시대,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기르고 가르쳐서 그를 ‘자신의 육신’으로 삼고 ‘뜻’을 펴 나가신다.

<2017년 4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이 많은 자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고, 할 일이 없는 자에게는 시간이 많아서 지루하다.
2.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육신의 할 일>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한다. <자기를 위한 영적인 일>은 무궁무진하다.
3. <육적인 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안의 영적인 할 일>은 너무 많다. 이는 ‘영원히 누릴 것을 위한 일’이다.
4. <육의 일>은 ‘육이 누리고 마는 일’이지만, <영의 일>은 ‘영이 영원히 누릴 것을 두고 육신이 할 일’이다.
5. 기도하고 ‘할 일’을 배워라. 깨달아라. 하나님은 할 일이 없는 자들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할 일’을 주신다.
6. 할 일 없이 놀면서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얻는 것 없이 무의미한 희망으로 사는 자들아. 우리 포도나무 밭에 와서 일하자. 보수도 주고, 인생 지겹지 않게 영원한 희망으로 살라고 하나님도 주도 부르신다.
7.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친 자들은 잠깐씩 쉬고 놀면서 ‘자기 휴식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하자.
8. 일을 할 때는 마치 얼굴에 예쁘게 화장을 하듯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해라. 그래야 하고 나면, 모두 눈이 가고, 보고 만족하고 칭찬한다.
9. 화장을 잘못해 놓으면 도깨비, 생쥐, 여우같이 된다. 일도 그러하다. 노력하여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멋있게 안 하면, 해 놓은 일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꺼리게 보인다.
10. 일을 해 놓고 지적받으면, 안 한 것만 못하다.
11. 교회의 일들도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멋지게 해라.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여 열심히 한 것은 맞지만, 네모지게 할 일을 원으로 하고, 꺾어서 할 일을 돌려서 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면, 보는 자들이 같이 따라서 하기 싫어한다. 그때는 다른 자를 사명자로 보낸다.
12. <주와 같이 한 일>은 빛이 나고 아름답고 잘되어 있다.
13. 전도도 제대로 못 하면, 주가 보고 합당하지 않으니 그 길을 막는다.
14. 자연성전 야심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여섯 번이나 쌓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과 모양’이 안 나왔

으면 야심작을 쌓은 목적을 못 이루어, 일은 했어도 보람도 만족도 없었을 것이다.

15. <삼위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더욱더 그 ‘목적’대로 완전하게 해야 된다.

16. 자기가 쓸 집이나 환경도 만족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후에 보면, 마음에 안 든다. 자기 머리를 중심해서 했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으로 했으면, 만족하여 평생 기쁘다.

17. 하나님의 역사도 <구약역사>는 ‘그 시대 급’으로 역사했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뜻을 두고 다 하지 못하여 만족할 수 없었다. 그 시대에 맞게 ‘종급’으로 역사를 폈다. 하나님은 ‘더 좋게, 더 새롭게’ 하시고자 <구약 기간>이 끝나고 <신약역사>를 시작하셨다. <신약역사>도 신약시대에 만족하지, <미래의 역사>는 아직 오지 않았기에 ‘미래의 것’까지 못 했다. <미래 역사>는 ‘미래의 사람들’이 커서 해야 된다.

18. 신약 이후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시대에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을 미련 없이 행하셨다. <휴거>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을 찾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새 에덴동산의 천국 황금성 궁’을 지으셨다.

19. <하늘>에는 ‘천국 황금성’을 짓고, <땅>에는 ‘땅에 해당되는 황금성 궁’을 짓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을 행하셨다.

20.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최고로 목적인 것’을 행하고 만들어야 만족하고 기쁜 것이다.

21. <자기가 최고로 원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지어야 만족한 것이다.

2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최고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야 만족하고 기쁘다. 그래서 <자연성전 야심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섯 번이나 다시 만들어서 여섯 번째에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형상, 백보좌’로 만들었다. 또한 <잔디성전>으로 할 곳에는 잔디성전을 만들고, <운동장>으로 할 곳에는 운동장을 만들고, <호수>로 할 곳에는 호수를 만들고, <폭포수>로 할 곳에는 폭포수를 만들고, <건물>을 지을 곳에는 건물을 지었다.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다. 하나님의 구상이다. 그러니 사람들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23.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야’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와 같이 살아야’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야’ 만족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원하시는 대로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만족하신다. 그 목적을 이루었으니,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서 잔치하신다. 그리고 <창조 목적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구약도 신약도 ‘삼위가 최고로 만족하고 원하시는 대로 창조 목적을 이룬 역사’가 아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종 역사, 자녀 역사’만 이룬 것이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 지나고 마지막에 <창조 목적, 사랑의 혼인 잔치 역사>를 1000년 동안 이루신다. 그중에서 <땅에 메시아를 보낸 기간>에 ‘최고 급 휴거 역사’를 펴신다. 이때 이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구원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들 중의 최고 복 있는 자들’이다.

24. 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만족하고,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어 성령도 성자도 기뻐서 <사랑의 혼인 잔치>를 하신다.

25.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괴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지한 대로 스스로 형벌을 받게 된다.

26. <지혜>는 ‘잘 따지는 데’에 있다.

27. <지혜>는 ‘잘 계산하는 데’에 있다.

28. <지혜>는 ‘말을 잘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다.

29. 잘 만들어 놓고 따지기를 잘해야 된다.

30. 잘 만들어 났는데도 잘못 따지고 생각하면 잘못 만들었다고 하며 후회한다. 고로 <지혜>는 ‘잘 따지는 데’에 있다고 한 것이다.

31. 어떤 사람이 지역 개발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 잘해 났다. 그러다 어느 날 다시 보니, 잘못 만든 것이 보여서 후회하며 별 기쁨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만들려고 따져 보니, 이번에는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알았다. 다시 기쁘고 좋았다. 그날은 ‘잘못 따진 것’이고, 이날은 ‘잘 따진 것’이다.

32. 두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고 ‘각각 두 주의 소나무’를 사 왔다. 한 사람은 ‘큰 것만 두 주’를 사 오고, 다른 사람은 ‘큰 것 한 주, 작은 것 한 주’를 사 왔다.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하며 좋아했다. (초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 <자기 취향>이 있고, <청중 반응 취향>이 있다. <지혜>는 ‘잘 따져서 더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지혜’다.

33. 두 사람이 정원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섬세한 것’을 중시하여 만들고, 다른 사람은 섬세한 것은 거의 못 하고 ‘큰 것’이 눈에 확 띄게 ‘균형’을 중시하여 만들었다. 누가 더 지혜롭냐. 못 고르면 지혜자가 아니다.

34. <지혜>는 ‘잘 따져서 더 좋은 쪽을 택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된다. CGM소개 | 회원약관 | FAQ | 사이트맵 | proviworld.com@gmail.com copyright © 2009 NEW CHANGE CGM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10815 어제:1137 오늘:1525 전체:16165896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수학 문제를 두고도 따지고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듯이, 모든 의심스러운 일들도 따지고 계산해 보면 ‘의문’이 풀린다.

2. 따지고 계산해 보면 의문이 풀리고 속이 시원한데, 안 따지고 흐리멍덩하면 애간장도 타고, 의심도 하고, 오해도 하고, 불신도 하고, 싸우고 미워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한다.

3. 의인도, 악인도, 불의한 자도, 거짓된 자도 확인하고 따지면서 풀어 보면 다 안다.

4. 사업도 경영도 따지고 연구한 자들이 의문을 풀고 답을 받고 행함으로 성공하여 ‘물질 천국’을 이룬 것이다.

5. <성경>을 놓고 ‘삼위와 함께 따지고 의문을 풀 자’가 성공했고, 그가 ‘모두가 원하고 기다리던 사명자’가 되었다.

6. 게으르고 소심하고 하기 싫어하는 자는 <의>와 <진리>를 놓고 제대로 따져서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다가 결길로 가서 고생하며 살아간다.

7.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도 각종으로 따지고 풀면, 답이 나오고, 보화도 찾고, 의심 없이 알고 산다.

8. <메시아>도 ‘역사’와 ‘때’와 ‘그가 말씀하는 것’과 ‘그가 행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따지면, 절대 메시아인 줄 알게 된다.

9. <주>를 믿고 살면서, 아직도 <주>를 모르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제대로 따지고 계산하는 능력’이 없어서 따지며 캐묻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계산하여 100% 믿고 따라오는 자는 200%, 300%, 1000%까지 확신하며 따라온다.

10. 자기 생각의 차원, 행실의 차원, 신앙의 차원이 낮아지면 <주>를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의 심리로 믿어 왔나?’ 하게 된다.

11. 의심하는 자들을 보면, 상대가 다 행하고 이뤘는데도 의심한다. 주를 의심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12. <인간의 뇌>는 100% 믿다가도 100% 의심하기도 한다.
13. 인간은 ‘절대적 신’이 아니라, 그 생각이 다 맞지 않다. 고로 때마다 믿다가도 의심하고, 의심하다가도 믿는다.
14. 10년, 20년 동안 하나님과 주를 믿다가도 서운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고 혈기가 나면 불신하게 된다. 그러다 다시 좋아지면, 불신했다가도 맞다고 한다. 이것이 ‘인간의 뇌’다.
15. <인간의 뇌와 생각>은 변동이 많다. 불신한 자도 잘해 주면 다시 맞다고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자도 순간 서운하면 아니라고 불신한다.
16. <인간의 생각>은 ‘물’과 같다. 생각이 강렬하면 뜨거워지고, 그냥 놔두면 식기 마련이다. 고로 <자기 순간의 생각>으로 따지면 안 된다.
17.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를 ‘순간의 기분과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판단하느냐. <절대적인 표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져라. <말씀>으로 따져도 의심하는 자는 ‘정상이 아닌 자’로 생각하고, 나가서 고생하다가 형벌 받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 준다.
18. 이웃이 ‘밭에 감춰 둔 보화’를 캐면 처음에는 믿어 주며 증거해 주다가도,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식으면 절대 아니라고 하며 부인한다. 이것이 ‘인간의 뇌’다. 섭리사를 따르던 자들도 이렇게 하고 나갔다. 처음에는 주를 시인하고 좋아하며 따르다가도 그때 자기 뜻대로 안 해 준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서 떠난다. 그들은 그 위치에서 행한 대로 형벌을 받는다.
19. 동쪽에서 해가 뜨면 부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갈수록 더 드러나서 세상을 비추게 된다.
20. <하나님의 역사>를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는 자들은 “저게 뜨는 해냐? 지는 해다. 억지 부린다.” 하지만, <뇌와 생각>이 ‘밤’을 맞으면 캄캄해서 안 보이니 판단을 못 하는 것이다. 아는 자들은 <뜨는 해>를 보고 “<낮>이다.” 하는데,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 <지는 해>로 생각하고 “<밤>이다.” 한다. <뜨는 해>라면 갈수록 찬란하고, <지는 해>라면 곧 해가 저물어 어두워질 것이다. 보면 안다. 하나님은 ‘눈 뜨게 할 자들’을 눈 뜨게 하여 보게 하신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제 <시대 소경들>이 눈을 떴으니, 수만 명이 증거한다. 그리함으로 <다른 소경들>도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온다. 그들이 배우고 믿고 따라온다.
21. <성경을 깊이 풀고 따지며 확인을 깊이 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 그러나 <두려워서 오히려 거부하고, 따지지 않고 풀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러다 결국 ‘금’이 아니라 ‘금철’한 것이 드러나듯, ‘자기들의 모순과 미련함’이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자기가 불신했던 것’을 따라야 되니, 적당히 덮고 ‘구시대 신앙생활’을 한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22.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인간이 불신한다고 하다가 마시겠느냐. 기어이 정녕코 이루신다. ‘회개하고 진정 원하는 자’만 <창조 이후 최고 축복의 세계, 휴거 역사>에 오게 된다.
23. 고집과 무지와 자기 성격을 내세우다가 인생을 허무로 다 보내고, <하나님이 시대에 택한 자들>이 휴거되어 흰 옷 입고 황금성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해 그늘에 멀리서 쳐다보면서, 서산이 무너지게 땅을 치며 통곡하고, 땅에 머리를 박으며 짓몸개고, 어둠의 길로 간다. 이는 ‘나중에 볼 일’이 아니라, ‘지금 보는 일’이다. 지금,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다.

<2017년 4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24. 하나님의 역사도, 메시아도,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도, 옳고 그른 것도 하나하나 따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고

<의문>이 풀린다.

25. 어느 날 <작품 돌>을 파는 데 가서 많은 돌 중의 ‘좋은 것’을 골라서 ‘일곱 개’를 사 왔다. 처음에는 다 좋았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을 두고 보니 사 왔을 때와는 달랐다. 그중의 제일 좋은 것 ‘한두 개’는 계속 좋았다. 다른 것들은 별로였다. <돌이 좋아서 기뻐 흥분됐을 때 보는 것>과 <기쁨과 흥분이 식었을 때 보는 것>은 다르다. <기쁨이 식었을 때>도 ‘여전히 좋게 보이는 돌’이 작품이다.

26. 처음에는 최고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자라도 나중에는 ‘내가 왜 이 여자를 택했지? 내가 왜 이 남자를 택했지?’ 하며 후회하기도 한다. 고로 ‘짝’을 택할 때도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하나 따져 보고 택해야 된다.

27. 시장에 가서 ‘각종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사 온 후에도 집에 와서 보면 ‘내가 왜 이것을 샀지?’ 하게 된다. 고로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고르고 골라서 ‘필요한 물건과 음식’만 사야 된다.

28. 성전을 살 때도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고르고 골라서 ‘나중에도 좋아하고 만족할 것’을 사야 된다.

29. 성전을 살 때는 ‘자기 사랑하는 자’를 택하듯 고르고 또 고르고, ‘모양과 형상과 속’을 다 보고 사라.

30. 성전을 살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섭리사와 신부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인가?’ 보고 사야 된다.

31. 하나님은 ‘장소’를 보시고, 성령님은 ‘자기같이 모양과 형상이 예쁘고 멋있나’ 보시고, 성자는 ‘전도가 잘될 것인가’ 보신다.

32.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했다. 주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정신을 받아서 사니, ‘말의 능력’을 받아서 ‘신’이 되어 증거하고 외쳐라.

33. 흔히 자기 의견, 속 이야기, 생활 이야기는 속 시원하게 잘하는데, <복음과 삼위에 관한 것>은 말을 잘 못 하는 자들이 많다. 자꾸 배우고 연구하여 ‘말의 달인’이 되어라.

34. <말>을 잘해야 <전도>가 잘된다. <말>을 잘하려면, 배우고 연구하고 연습해라.

35. 멸치, 송사리, 미꾸라지, 피라미, 올챙이같이 작은 것들을 잡으면, 집에 갖다 키워도 안 크고 늘 고만하다. 그러면 물 먹여 가며 고생하며 잡은 보람과 기쁨이 없다.

36. 아무리 가르치고 관리해도 <신앙이 더 안 크는 자>는 멸치, 미꾸라지, 송사리, 피라미 과다. <자꾸 크는 자>는 큰 물고기 과다.

37. <깊은 곳>으로 가서 ‘말씀의 그물’을 던져라.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라. 그래야 ‘좋은 생명, 좋은 작품, 좋은 건물’을 얻을 수 있다.

38. <종자>는 못 속인다. 어떤 자는 ‘좋은 씨’인데 퇴비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돌감나무가 된다. 퇴비하고 다시 정성을 들이면, ‘참감나무’가 된다. 어떤 자는 ‘종자’가 그러하니 퇴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돌감나무다.

39. 사람이나 작품이나 건물이나 ‘겉’만 보면 모른다. 깊이 기도하고 영계로 보면서, 잘 따지고 잘 골라야 된다.

40. 작품도 아닌데 환상과 착시에 좋아한다.

41. 생명나무 형상의 하나님 상징 돌, 성자바위, 큰바위얼굴바위, 낙타바위, 코끼리바위, 월명동 지형 정도 돼야 걸작이다. 나머지도 작품이지만, 차이가 너무 난다.

42. 자연성전 폭포수 정도 돼야 걸작이다. 제1폭포는 오아시스 폭포, 제2폭포는 호수 폭포, 제3폭포는 연회장 폭포다. 이 중의 <연회장 폭포>는 마지막 폭포수로 대걸작 모양과 형상을 이루었다. 누구나 봐도 혀를 내두를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이다.

43. 따지고 하나하나 봐야 여기저기 어떤 모양인지 안다. 전능자 신의 구상을 그리 쉽게 만들지도 못하고 알기도 어렵다. <자기만 아는 지혜를 가진 지혜자>만 알고 감탄할 것이다. 모두 인봉을 떼서 신의 구상을 보고, 볼 때마다 구상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멋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영광 돌려라.

44.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알고 해 놓으셨으니,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2017년 4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스스로 발달해야 스스로 하게 된다.

2. 창조주 하나님은 인생들이 저마다 노력하고 행하면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고, 자기 행위대로 복도 화도 받으며 살게 창조해 놓으셨다.

3. 원시인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생각을 받아서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면서 행하면, 하루 만에 '원시인 주관권의 생각과 행위'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원시인들은 7000년이 지나도 예전과 비교했을 때 별로 변화된 것 없이 살아간다. 원시인도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며 행하면 발달된다.

4. 전능자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행위의 차원'대로 도우신다.

5. 지구 세상이 다 발달되어 '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원시인들의 자손들은 아직도 옛날과 별다른 것 없이 자기 선조 때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원시인 세계>는 조금 돕고, <발달된 세계>는 더 많이 도우셨다는 말이나?(말인가?) <발달된 세계>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생각을 받아서, 자꾸 자기(의) 옛 삶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연구하며 행했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자기 삶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차이다.

6. <사람의 뇌>는 살다 보면 '자기 삶에서 더 나은 생각'이 떠오르고 '더 나은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행하면서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원시인들은 이것을 안 했다. '더 나은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산다.

7. <백지장 차이의 생각>으로 '자기 삶에서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더 좋은 것'을 보게 된다. 백지장은 얇지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다 보면 산더미같이 되듯이, <자기 삶에서 더 좋은 백지장 같은 생각>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옛것'을 버리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1m, 10m, 100m 다른 차원에 오르게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8. <기성의 시대>는 '새로운 변화'가 멈췄다. 구시대 주관권 안에서 <자체적 변화>는 되는데, <새 시대 급의 변화>가 안 된다. 이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씀 외에는 더 없다. 신약에서 끝났다." 하는 생각에서 멈췄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기성 주관권에 있는 구약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구약 외에는 없다. 모세 외에는 없다." 하고 단정 지었다. 그러니 '구약 원시인 원숭이'가 된 것이다. 원숭이는 사람이 하는 짓을 비슷하게 흉내 낸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다. 신약인들도 그러하다. 이들은 '발달되지 못한 원시인' 같다.

9.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의 새 시대>가 오니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서 차원 높여 역사하셨다.

10. <구약>과 <신약>은 하늘과 땅 차이다. <구약>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새 시대'를 불신하니 '종급'에서 못 벗어나고 '구약 뜻'만 폈다.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 자녀 급'으로 차원을 높였고, 2000년 동안 계속 발달해 왔다.

11. 하나님은 <대(大)목표>를 두고 메시아를 통해 지구 세상에 ‘말씀’을 주며 섭리해 가신다.

12.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시대’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인간은 인생 100년 전후로 죽으니, <당세, 자기 육이 살아 있는 시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못 꺾는다. <수천 년>을 두고 역사가 펼쳐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낸 후 4000년 동안 <중급 구약역사>를 펴냈고, 이후 ‘예수님’을 보낸 후 2000년 동안 <자녀급 신약역사>를 펴냈다. <신약>에서 멈추지 않고, 성경대로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사랑의 최고 대상, 신부’같이 대하면서 혼인 잔치하며 1000년 동안 <신부급 성약역사>를 펴나가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1초도 어기지 않고 행하신다.

13. 구약 4000년이 끝나면 ‘예수님’을 보내서 ‘성경에 예언된 역사’를 펴시고, 신약 2000년 이 끝나면 ‘새 사람’을 보내서 ‘성경에 예언된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미리 준비하고 키우셨다가 ‘신약의 때’가 저물 때부터 그 육신을 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대 말씀’을 주면서 ‘새 시대 뜻’을 펴 나가신다. 그러나 <구시대 신약인들>은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시나?” 하고 기다린다. 모르니 그러하다. 자기에게 ‘복음’이 와야 안다. 그러나 자기에게 ‘복음’이 왔어도 ‘배우고 믿고 따라야’ 안다.

14. 구시대는 모르니 불신하고 배척하고, 마음과 생각의 눈이 가려져 소경이 되어 믿지 않으니 더 몰라서 불신하고 배척한다.

15.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에 대해 절대 못 풀고, ‘성경’도 절대 제대로 못 푼다. 하나님만 아시고, ‘보낸 자’에게만 말씀해 주신다. 고로 오직 ‘보낸 자’만 알고 ‘복음’으로 인생들을 이끈다.

16. <오는 메시아>는 ‘자기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풀고 행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간다. 지구 세상에 그 외에는 ‘성경을 제대로 푸는 자’가 없다. 성경에도 “메시아 자신밖에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자기에 관한 글도 자기밖에 모른다.” 하고 계시해 놓았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이다.

17.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지혜’를 가지고 ‘뜻’을 펴 나가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그러하다.

18. <그 날과 그 때>는 ‘오는 메시아’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고, 다 행한 후에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 것’을 알고, 그때부터 ‘역사’를 펴 나간다.

19. <성경의 약속>은 ‘신약’에서 끝나지 않고 ‘새 시대’로 이어져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시대인들’은 믿지 않고 배척한다. 예수님 때도 그랬다. ‘구시대 구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 작게라도 ‘새 시대 역사’를 폈다. 그러나 <새 역사>는 점점 커져서 <구시대 구약>과 비교할 때 인원도 역사도 비교가 안 되게 컸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기 전’부터 <새 역사, 새 사람>을 미리 준비하시고 ‘신약의 해’가 저무니 <새 역사>를 도적같이 펴 오셨다. 70년 동안 역사를 펴시고, 성자는 그 육신을 쓰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를 이루고 ‘천국’으로 가셨다. 휴거 3년 전부터는 ‘휴거의 근본 말씀’도 핵적으로 전해 주고 ‘휴거의 비밀’을 밝히며 ‘진리와 성령’으로 극적으로 역사하셨다. <구시대>는 불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작게라도 <새 역사>를 펴 가신다. 그러나 1000년이 가면, 또 <새 시대>가 세상을 뒤덮는다. <하나님의 역사>이니, 오죽이나 커지고 잘되지 않겠느냐. 매일 발달되어 가는데도 모르느냐. <구시대>는 매일 퇴보한다. 고로 ‘새 시대’와 안 맞다. ‘구시대 안’에서만 맞고, ‘구시대 육적인 차원’에서만 맞다.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1.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온다고 ‘육’으로 푸니 안 이루어지고, 앞으로 1000년이 가도 <구시대>는 그렇게 알고 끝난다.

22. <그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 중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신약 때>는 ‘예수님’, 그 후 <새 시대>에는 ‘새 시대 신부급 구원자’를 택하여 그 차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23. <새 역사>는 ‘사랑의 역사’다. 세세무궁토록 찬란하고, <새 역사에 참여하여 믿고 행하는 자들의 영들>은 ‘신부급’으로 부활되고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으로 가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한다. <육신>은 땅에서 사는 동안 ‘주’와 같이 평생 ‘혼인 잔치’를 하고, <새 역사>는 후대까지 이어져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간다.

24.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역사를 펴 나가도 <아는 자>만 참여하고, <믿고 행하며 사는 자>만 제대로 알고 역사의 혜택과 보람을 누린다.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25. 모르면, 그 면에서는 ‘아는 자 앞에 원시인’이다.

26. 원시인은 발달된 자들처럼 발달된 세계를 모르고 사니, 원시인이다.

27. <시대>도 ‘모르는 원시인 구시대’가 있고, ‘아는 발달된 새 시대’가 있다.

28. 하나님은 “<모르는 자>,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원시인 삶을 사는 자’다.”라고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어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역사의 핵심인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이루셨는데도 구시대는 모른다.

29. 새벽에 깨워 줘도 빨리 안 하니, 원시인이 된다. <모르는 자>는 ‘원시인 삶을 사는 자’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도 ‘원시인 삶을 사는 자’다. 모르면 몰라서 새 시대로 오지 못한 채 구시대에서 살기 때문이고,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구시대 그 차원’에서 살기 때문이다.

30. 원시인들은 ‘더 좋은 것’을 행하며 차원을 높여야 되는데 ‘옛 삶’이 체질이 되어 안 한다. 고로 100년, 1000년, 2000년, 7000년이 가도 ‘구시대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31. 섭리인들도 시대 말씀을 듣고 살면서 ‘현재의 삶’에서 매일 조금씩 ‘더 좋은 것’을 보고 깨닫는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차원을 높여야 된다. <사람의 뇌>는 ‘한 번’에 엄청난 것을 못 깨닫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금방’ 엄청난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엄청난 것, 큰 것을 ‘한 번’에 안 주신다. 줘도 인간이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못 하니, ‘백지장’이 한 장, 한 장 쌓이듯 ‘조금씩’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인간이 ‘점진적’으로 깨달아 간다. 그것을 하나씩 점진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차원’을 높이며 ‘발전’하는 것이다.

32. 모르면 ‘기성 같은 원시인 삶’이고, 알면 ‘하나님의 새 역사 삶’이다. 알았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원시인 삶’이다. <실천>해야 ‘변화’되고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된다.

33. 산을 오를 때나 길을 갈 때도 <실천>하면 ‘새로운 환경과 배경으로 변화’된다. 이와 같이 <실천>하면 ‘변화’된다.

34. 집을 설계해 놓고 <실천>하면, 실천하는 대로 ‘집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변화’된다.

35.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목적을 두고 <실천>하면 만들어지고, 변화되고, 제2의 창조를 하게 된다.

36. <생각>만 하면 마음만 기쁘다. 그러다 <생각>이 끝나면,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37. 가령 남녀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다 하자. 그런데 둘이 손만 잡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그 단계의 느낌’만 받는다.

38. <할 일>을 ‘자기 애인’, 혹은 ‘자기가 짝사랑하는 자’라 생각하고, <할 일>이 “나와 사랑하자.” 하며 허락할 때 즉시! 같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해야 ‘사랑’을 느끼고 기쁘고, ‘다음 차원의 것’을 얻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된다.

39. 결혼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노처녀, 노총각’으로 혼자 늙는 자들이 많다. <신앙의 자녀>를 낳아야 ‘홀몸’이 아니다. 그래야 ‘노처녀, 노총각’으로 홀로 늙지 않고 ‘사랑의 세계’를 이룬다.

40. 몸이 멀쩡한데 왜 아이를 못 낳느냐. 남자나 여자의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임신했어도 유산하게 된다. 또한 ‘적령기’가 지나면, 아이를 못 낳는다. <신앙의 자녀>를 못 낳는 자들도 영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진정 사랑하여 사랑이 불타고, 마음과 생각과 행실에 이상이 없고, 시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어야 <신앙의 자녀>를 낳는다. <신앙의 자녀>를 낳았어도 자기가 게을러서 어린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타인에게 생명을 맡기고 자기는 즐기다가 죽이기도 하고, 자기 성질을 못 다스리다가 생명에게 영향을 주어 죽이기도 한다.

41. <생명 전도의 원시인들>이 많다. <생명 구원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는 몰라서 못 하니 ‘원시인’이고, <생명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원시인’이다.

42. 누가 원시인들을 부러워하느냐. 그저 그 답답한 삶을 구경할 뿐이다. 자기도 예전에 원시인이었으니, 끔찍해서 진절머리를 친다.

43. 그동안 원 없이 ‘모르는 원시인,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원시인 삶’을 살았으니, 이제 원 없이 알고 깨닫고 실천하여 ‘새 시대 발달된 삶’을 살아라.

<2017년 4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44. (하나님) 뒤의 책임은 내가 진다. 보는 자가 해야지. (<야심작 앞산 돌 사이에 심은 솔>이 당세에는 팬찮아도 300년, 400년 가면 커서 어떻게 되느냐고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내가 책임질게. 보는 자 책임이니 까.”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잔디밭 위의 솔>은 700년 크면 두세 아름 되고, <백보좌 사랑솔>은 제대로 크면 세 아름 된다.” 하셨다.

45. <생각>을 잘못하면, 원시인 된다.

46. <악의 생각, 불의한 생각, 하나님을 떠난 망상의 생각>은 모두 ‘원시인 생각’이다.

47. 원시인들은 자연 속에서만 살아간다. 만들고 발전하는 것은 싫어한다.

48. 원시인들은 옷 입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옷을 안 만든다. 옷 벗고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옷을 벗고 살아간다.

49. <발달된 문화권 세계>에서 살아도 ‘자기 취향’대로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뒤쳐진 원시인’같이 된다.

50. 어느 날 회골에서 10대 청바지 소녀를 만났다. ‘현대 원시인’이었다. 인연이 되어 ‘한마디 태양 같은 말씀’을 넣어 주니, 그 소녀는 <주>를 ‘머리’로 삼고 21년 동안 살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세계>에서 ‘태양 같은 빛’을 비추고 다닌다. 그로 인해 ‘수많은 원시인들’이 ‘어둠’에서 자기 삶을 버리고 ‘빛’으로 나온다. 그때 그 소녀와 같이 만났던 원시인들 몇 명은 다시 자기 족속으로 돌아갔다. 듣자 하니, 원시인 족장을 만나 병들어 갇은 고통을 받는다고 했다.

51. 원시인들 중에서 <발달된 세계>에 갖다 놓으면 ‘적응하며 사는 자’도 있고, ‘못 견디고 다시 자기 족속으로 가는 자’도 있다. 시대 종교인들도 그러하다. <새 시대>에 왔다가 ‘적응하고 차원 높여 사는 자들’도 있고, ‘못 견디고 구시대로 간 자들’도 있다.

52.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시대 원시인 신앙인들’이다.

53. <먹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 <발달된 세계에서 사는 자들>은 ‘먹는 것’이 다르니, 보다 키도 크고 미도 뛰어나다.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새 시대>는 ‘영의 양식, 말씀’이 뛰어나니, 육의 생각과 행실도 뛰어나고, 영의 미와 빛도 뛰어나다.

54. 매일 발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하여 ‘원시인 삶’을 벗어나라.

55. 월명동에 돌 하나를 쌓으면, 다음 돌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생각한다. 그렇게 쌓고, 또 쌓아서 ‘원시인적 흙 지역’을 벗어나 ‘돌덩이 작품’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매일 삼위의 지혜와 말씀을 받고 하나하나 실천하여 ‘원시인 신앙의 삶’을 벗어나 ‘이상적인 천국 같은 삶’으로 와라.

56.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손과 몸으로 다 했다. 원시적이었다. 그러니 모든 시간을 농사짓는 데 다 썼다. 그러니 몸이 망가져서 오래 못 살고 50~60대에 죽었다.

57. 원시인은 ‘몸’으로 다 하니 <큰 건물>도 못 짓고, 월명동처럼 돌과 바위를 가져다 <자연성전>도 못 만든다. 고로 하나님은 ‘발달된 자’에게 하나님의 구상을 주어 <자연성전>을 만들게 하셨다.

58. 1970년경에 인삼 농사를 지을 때도 원시적으로 일했다. 일하느라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먹고 사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뺏겼다. 그 삶에서 벗어나 대둔산에 가서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실천>하여 ‘원시인 삶’을 벗어났다.

59. <육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자>는 ‘가인 족속 원시인들’이다.

60. 원시인 중에서도 ‘세련된 원시인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이 따라 하기 쉽다.

61. <원시인의 행위>와 <그 말>을 들어 보면 ‘원시인’인지 안다. 시대 신앙의 원시인들도 그러하고, 악평자 원시인들도 그러하고, 거짓된 원시인들도 그러하다.

62. <주 안에서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자들>은 ‘원시인 신앙인’이다.

63.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는 자들>은 ‘죄에 매인 원시인들’이다.

64. <썩는 문화에 빠져 육적으로 인생을 누리는 예술의 원시인들>이 지구 세상을 뒤덮었다.

65.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아첨하고, 밑의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 주관으로 사는 세련된 원시인들>은 독수리에게 걸리면, 날개가 꺾여 기어 다니게 된다.

66. 섭리사에도 <옛날에 와서 옛날 식으로만 하는 늙은 원시인 삶을 사는 자들>이 많고, <그렇게 지도하는 자들>도 많다.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밑’에 두고 ‘자기 식’으로 이끌어 가니, 그런 자들은 지도자로 안 세운다. 이들은 ‘발전이 없는 원시인들’이다.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라!

<2017년 4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젊은 자도 시들고 변하여 늙는 표가 나는 것이다.

2. 늙어 가는 표가 난다는 것은 아직 다 늙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사람은 태어나서 0대에서부터 3년씩 7단계를 거쳐 21세까지는 성장한다. 그다음부터는 늙어 간다.

4. 성장기 때는 표가 나게 성장하고 얼굴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성장하고 피는 기간>이 3년씩 7단계를 지나면, 마치 ‘활짝 핀 꽃’이 더 이상 피지 않듯이 인생도 더 피지 않고 멈추게 된다. 이때는 ‘성장이 다 되어 성장이 멈춘 시기’다. 21세부터 3년마다 보면, 늙는 표가 난다. 이렇게 3년씩 20번을 지나서 80세가 넘으면, 3년이 지나도 더 늙은 표가 안 난다. 이때는 ‘늙는 것도 멈춘 시기’다.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더 시들어도 시든 표가 안 나듯이, 사람도 80세가 넘으면 더 나이가 들어도 전과 비슷한 모습이다.

5. <인생 성장기>라도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에 따라서 ‘성장’이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한다.

6. <인생 황혼기>라도 어떻게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황혼’이 빨리 오기도 하고, 남보다 10~30년씩 늦게 오기도 한다.

7. 신앙도 이와 같다. <7단계 성장기>로 본다. 3년씩 7단계를 보면, 확확 변화되고 성장된다. 더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멈춘 것이다. 3년씩 7단계 성장기 이후로 또 3년씩 계속 단계를 보면, 신앙이 늙는 표가 난다. 생각과 행실의 활동이 적어지고, 옛것에 멈춰져 있다. 마치 <인생 황혼기>에 얼굴과 몸과 각 기능이 쇠퇴하여 변하듯, <신앙의 황혼기>를 맞아 변하게 된다. 얼마나 자기 신앙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황혼’이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한다. 자기 관리를 잘 못 하면 ‘신앙의 황혼’이 10~30년씩 빨리 온다.

8. <신앙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면, 일찍부터 ‘신앙의 성장’이 멈추고 늙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 일찍 ‘신앙의 황혼’을 맞게 된다.

9. 말씀을 들어도 별로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늙듯이 갈수록 신앙이 늙어 가는 자들이 있다.

10. <자기 몸>도 ‘관리’를 잘하면 60세가 넘어도 15년, 20년씩 더 젊음을 유지한다. <신앙>도 ‘관리’하기에 따라서 젊게 된다.

11.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하면 나이보다 늙는다. <신앙>도 그러하다.

12. 사람은 ‘나이’보다 ‘잘 관리하기’다.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차이가 나게 젊다. <신앙>도 그러하다.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신적 신비의 세계>는 ‘마음’으로 ‘영’으로 누리는 것이다. ‘육적 실체’로는 불가능하다. <사랑>도 <영적 세계의 어떤 것>도 그러하다.

2.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를 증거하며 메시아의 칙령을 예비하는 것’이다. 고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의 체질에 따라서 ‘메시아의 것’도 행한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빛을 잃는다.

3. <좋은 것>이 나오니 <보다 못한 것>은 빛을 잃는다. 고로 ‘자기 때’에 실컷 해야 된다.

4.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는 빛을 잃는다. <구시대>는 ‘구시대의 때까지’만이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아무리 으리으리해도 빛을 잃는다.

5. <자연성전 산책 길>은 ‘아예 새벽 별 작품’이다. 고로 빛을 잃지 않는다.

6. <새벽 별>은 어떤 별이 새롭게 나와도 빛을 잃지 않는다.

7. <새벽 별과 일체 된 별>은 항상 빛을 잃지 않는다.

8. <세례 요한 사명자>도 ‘주와 일체’ 되면 빛을 잃지 않는다. 혼자 하면 빛을 잃는다.

9. <2017년 남은 기간, 섭리사 순회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 이것은 ‘주와 일체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말했다. 모두 듣고 실천해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빛을 발하며 잔치한다. (이 말씀은 섭리사 모두 알아야 될 핵심인 말씀이다. 순회를 맞지 않는 곳들도 이 방향을 알아야 빛을 발하고 잔치한다.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여 주를 제대로 맞는다. 주의 길을 알도록 간구해라! 간구하는 자에게 간다.)

10. 죽은 자를 장사하듯 옛것을 장사해라. 화장실 가서 배설해 버리듯, 청소하듯, 수술할 것을 수술하듯 죄와 꺼리는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고, 할 일을 하고, 버릴 것을 싹 버리고, 옛날 방법을 다 버리고 새롭게 해라. 그래야 잔치한다. 그리고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라.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잘하는 자도, 못하는 자도, 의인도, 죄인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각자 살아간다.

2. 그러나 못하는 만큼, 불의한 만큼, 약한 만큼 고통이 따르고 힘들게 살아간다.

3. 힘들어도 <대화>는 해야 된다. <대화>마저 안 하면 홀로 있게 된다.

4. <대화할 자>와 대화 안 하면, 그 시간에 ‘다른 자’와 대화하게 된다.

5. <주와 대화>를 안 하면, ‘다른 자’와 대화를 한다.

6. <대화하는 자>를 닮아서 ‘변화’도 되고 ‘변질’도 된다.

7. <속이는 자>와 대화하면 ‘속이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 제대로 알 때까지 속이는 자와 같이 행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대화>하지 않는 자는 ‘사람’과 대화하여 인본주의적인 자가 되고, 사탄 주관을 받는 자와 대화하게 되고, 사탄과 귀신과도 모르고 대화하게 된다.

9.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공의를 벗어나서 보고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중심의 생각을 위해, 주가 세운 자나 형제를 헐담하고 뒤에서 욕하는 자들이 있다. 때가 되면 결국 스스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10. <자기 말>로 인해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

11. <대화>로 ‘은밀한 것’도 알게 된다.

12. 사탄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 보고하게 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 하나, 주는 전능자와 일체 되어 다 안다.

13.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불의’는 일점일획도 용납이 안 된다. 죄를 혼자 회개하고 말지 말아라. 죄가 온전히 회개되지 않았으면 자기만 죄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죄는 그냥 남아 있게 되어 죄인의 길로 가게 된다.

14. 자기 혼자 죄를 회개하고 ‘회개됐겠지.’ 하고 자기 의지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죄가 청산된 기준으로 두지 말아라.

15.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안 됐어도 된 것으로 생각한다.

16. <죄>는 ‘100% 완전히 청산됐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17. <자기 생각>과 <실제>는 다르다.

18. 삼위일체의 허락 없이 자기 선에서 허락하지 말아라. 문제가 일어나면 ‘책임’을 져야 하고 ‘화’를 받게 된다.
19.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고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허락하기까지 해야 된다.
20. 어떤 사람은 허락받기 위해 자기 주관으로 상황을 꾸민다. 일단 믿어 주고 행해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된다. 그때는 상황을 꾸민 사람 스스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
21.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육적인 차원으로 ‘한쪽 면’만 보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보고한다. 그것도 자기가 앞에 나서지 않고 자기는 뒤로 빠져서 ‘다른 사람’을 통해 보고하게 한다. 주는 결국 확인하여 알고 청산하게 한다.
22. 모르면, 잠자는 것이다.
23. <죄>를 용납하지 말아라. <죄>는 자기에게 영원히 해를 준다.
24.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죄’인지 모른다.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25.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있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것과 지시하신 것을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26. 기도했으니 됐다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여야 되고, 응답하셨어도 이루어지는 기간까지 견디고 대처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27. 가령 먹을 것이 없다고 간구했더니 주신다고 했다 하자. 받기까지 견뎌야 하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28.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니 됐다고 하며 그냥 산다. 응답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는데, 된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다.
29. 기도했으면 ‘응답’이 됐는지 확인해라. 응답이 안 됐으면 ‘다시 기도’해라. 기도만 해서 안 될 일이면, ‘실천’하면서 해결해야 된다.
30. 병이 났을 때도 ‘기도’만으로 안 될 일이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해결해야 된다.
31. 신도 해야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안 하고 되겠느냐.
32. <지혜>는 ‘판단’이다. 이리저리 문제없이 판단해야 된다.
33. 지혜자가 ‘산을 옮길 만한 비밀’을 알아도 가만히 있으면, 문제를 당하고 일을 당한다.
34. 주라도 ‘할 일’을 두고 가만히 있으면, 전갈에게 쏘인다.
35. 전갈을 발견했는데 손으로 잡으면 쏘인다. 늦으면 전갈이 땅을 파고 들어간다. 전갈을 잡는 도구로 즉시 잡아라.
36.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말아라. 후에 ‘자기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통과 곤고함’이 산같이 쌓여서 자기에게 온다. 그때는 감당을 못 하고 다 받게 된다.

37. <게시>가 없으면, 백성도 개인도 ‘선’을 벗어나게 된다.
38. 매일 ‘소각할 것’을 소각하고 ‘할 일’을 하거다.
39. <할 일>을 미루면 ‘운명’이 돌아간다.
40. <제때> 못 하면 ‘그 일의 운명’이 돌아간다.
41. 사람이 ‘할 일’을 안 해서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일어난다.
42. 계시를 받기만 하지 말고, 계시를 받아서 전해 주기만 하지 말고, 어서 계시대로 실천할 것을 실천해라. ‘받은 자의 책임’이 크다.
43. 계시 받은 후에 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앞에 닥친 일은 눈에 보이니 해야 된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로 계시’해 주시고 ‘실체’를 통해 계시해 주신다.
44. <게시>는 ‘꿈’으로도 오지만 ‘실체’로도 온다. ‘실체’로 계시가 왔으면 행해라.
45.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46. 날씨도, 사람의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으니, 항상 때를 따라 살펴라.
47. 절대시 하지 않으면, 절대시 되지 않는다.
48. 완벽은 완벽이다.
49. 보통은 보통이다.
50. 소심은 소심이다.
51. 소홀은 소홀이다.
52. 보통으로 한 것은 보통으로 되어 있다.
53. 완벽하게 한 것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
54. 온전히 해라. 그러면 더 할 것이 없다.
55. <죽은 자>를 장사 지내야 잔치하게 된다.
56. <할 일>을 해야 잔치하게 된다.
57. <옛것>을 없애고 깨끗이 해야 <새것>을 가지고 잔치하게 된다.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다.

2. 아담과 하와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사탄의 꾀에 넘어갔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깨졌다.
3. 사탄과 반대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 하나님의 뜻이 깨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이 깨졌다.
4.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으나, <대상들>이 시원찮게 하니 '사탄의 꾀과 사람들의 주관'을 받고 못 하게 된다. 절대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하면 될 것'을 말씀하신다.
5.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못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다.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못해서 제대로 안 됐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서 100% 못 했다. 사탄이 막아도, 세상이 막고 안 따라도 <당세에 믿고 따르는 자들>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안>에서 제대로 못 하여 문제가 생기니 <밖>에도 문제가 생겨 불신과 문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고통을 받으며 그 차원에서 뜻을 폈다.
6. 이 시대도 그러하다. 말씀대로 목숨 걸고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핵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몸 된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게 됐다.
7. <섭리사 안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못 한 문제>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도 문제가 됐다.
8.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지 못하면, 주도 따르는 자들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9. <안>에서 '인 사탄을 쪼개는 역사'를 못 하면, 사탄이 틈을 타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게 된다.
10.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쪼개지 못함으로 '솔개'가 왔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11. <선과 악을 쪼개는 역사>를 못 하면, '인 사탄, 영 사탄'이 온다.
12. <믿고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못 하면, <주>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13.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를 알고 주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잘해야 된다.
14. <십자가>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른 자들의 책임>이 '첫 번째'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의 책임>은 '두 번째'다.
15. 첫 번째로 <내부>에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책임을 못 해서 주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두 번째로 <외부>에서 '무지하고 불신하는 자들'로 인해 주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16. 개인도 항상 '자기' 때문에, '자기 가정' 때문에, '자기 민족'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 결혼해서 같이 살 때도 항상 '남편'이나 '부인'이 책임을 못 해서 십자가 고통을 받게 된다. 섭리사에서도 '따르는 자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해 '지도자'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내부'에서 결정된다. <안>에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100% 제대로 했다면, <밖>으로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서 <주>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17. <주를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전체>가 그 혜택을 받아서 평화로운 시대가 된다.

18. <좋은 예정>은 있어도 <나쁜 예정>은 없다. <하나님의 예정>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따르는 자들>과 <이 시대 사람들>이 ‘책임’을 못 해서 하나님은 주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청산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깨닫고 깨끗이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해라.

19. 이 시대 십자가는 ‘육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고 ‘사랑의 십자가’다. 이를 알고, 주가 십자가를 져 주었으니 ‘사랑’을 깨뜨리지 말고 ‘100% 믿음과 사랑의 복직’을 해라. 그러면 영원한 성공이다.

20. 주를 따르는 자들도, 이 시대도 몰라서 못 했으니, 보낸 자는 ‘섭리사의 죄, 세상의 죄, 온 인류의 죄’를 100% 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조건을 세웠다. 그리고 주의 몸 된 자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휴거 비밀의 말씀’ 등 ‘진리의 불’을 쏘아 냈다. 또한 더욱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리함으로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었다.

21. 하나님은 <시대 십자가>로 ‘섭리사와 시대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극적으로 휴거를 준비’하게 하셨다. 주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길>도 열어 놓고, <휴거의 길>도 열어 났다.

22. 이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 주가 십자가를 졌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옛것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해라.

23. <죽은 자>를 장사 지내듯, <옛것, 옛 방법>을 장사 지내고 깨끗이 하고 <할 일>을 해라. 그래야 <새것>을 가지고 주와 같이 잔치하며 일어나 빛을 발한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의 길을 예비해라.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실천>하지 않으면, ‘운명’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다.

2. <육적인 자>는 ‘육의 뇌의 생각’으로 보고 느끼니, 차원이 아주 낮다.

3. <영적인 자>는 ‘영의 뇌의 생각’으로 보고 느끼니,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차원이 아주 높다.

4. <육적인 자>는 ‘세상의 존재물’을 보지만, <영적인 자>는 ‘영의 세계의 존재물’을 본다.

5. <영적인 자>는 육신을 넘어서 다른 세계인 ‘영원한 세계’를 잡고 있다.

6. <영원성>이 없으면, 순간 ‘육의 세계’에서 끝난다.

7.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히 존재하시니,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것’이 된다.

8. <사탄>도, <악의 영들>도 가다가 결국 ‘사망’으로 끝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체 된 자들의 영들>만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9. <이 세상>에서도 ‘끝까지 존재하는 자’가 다 차지한다.

10. 사람은 ‘육’이 죽으면, 자기 것도 그 어떤 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끝난다.

11. <영의 세계>에서도 ‘생명권에서 끝까지 존재한 자’만 영원한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린다.

12. 어린아이라도 안 죽고 존재하니, 이미 죽은 어른들의 것을 다 차지하고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생명권에서 주와 같이 살아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영원한 것’을 다 차지하고 누린다.

13. <어둠과 죄의 사망권에 가서 삼위와 끊어진 자들>은 ‘죽은 격’이 되었다. <영원한 세계>는 ‘생명권에서 계속 살아 존재하는 자의 것’이다.

14. <육의 행위와 삶>을 통해 ‘영원한 존재,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15. <육>이 살아 있을 때 ‘영원한 존재, 영’을 위해 살아야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권’에 속한다. 그러면 <육>이 죽어도 ‘살아 있을 때 육의 행실과 삶’으로 <영>을 살렸으니, <육>에 속한 마음과 생각>과 <혼>>이 변화되어 <영>에 속해 살게 된다. 이것을 못 하면, <육>이 죽었을 때 <혼과 영>도 ‘사망’으로 가고, <육>에 속한 정신과 생각>도 ‘사망에 처한 영’에 속하여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연속해서 받게 된다.

16. <자기 육>을 통해 ‘영의 세계, 영’에 대해 배워라. <육>이 있듯이 <영>이 있다. <영>이 없는 자는 <육>도 없는 자다.

17. <이 세상>이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다.

18. 집을 지은 자가 있으니 집이 지어졌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자>가 있기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19.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주관하신다. 그리고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보다 생각과 지능이 수조 배 낮은 인생들은 전능자가 행하셔도 모른다.

20. 사람들끼리도 <생각과 지능이 높은 자>가 목적을 두고 행하는 것은 ‘생각과 지능이 낮은 자들’이나 ‘어린 자들’은 모른다. 믿고 따르면, 그중에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21. 하루 종일 걸어가도 끝이 없는 큰 댐을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에게 보여 주면서 “이 댐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기보다 수백만 배 더 큰 것을 만들었지?’ 하고 이해를 못 한다. 하나님이 신으로 존재하시며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한다. 육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면, 이해를 못 한다. 사람은 ‘각종 기계와 장비’를 가지고 물을 막아 댐을 만든다. 물 넓이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좁은 곳을 막아 놓고,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와서 바다같이 거대한 댐이 되게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자연의 장비’를 창조하여 <자연>으로 ‘자연계’를 창조하셨다. 또한 ‘태초의 사람’을 창조하여 <사람>으로 ‘사람’을 낳게 하시어 지구 세상이 사람으로 차고 넘치게 하셨다.

22. 하나님은 ‘자연이 존재하는 한계’ 안에서 ‘스스로 창조될 것’은 스스로 창조되게 행하신다.

23. <같은 사람이 해 놓은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사람보다 수조 배 생각의 차원이 높은 삼위일체가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내어 그를 가르치시고 그가 깨닫고 알게 하여 ‘그’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인생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며 뜻을 이루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끝 날에 왕 같은 자들이 된다.

24. 발달된 자들은 ‘중장비’를 만들어서 100층, 130층, 150층 건물을 지어 놓는다. 원시인들은 ‘손’으로 겨우 초가집을 지어 놓고 사니, 상상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봐도 이해를 못 한다. 왜? 못 봤기 때문이다. 만드는 것을 보면 이해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137억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현생 인류는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됐으니, 누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 창조’를 봤겠느냐. 고로 배워야 된다.

25. 어린아이보다 30년 먼저 부모가 행한 일은 배워서 알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배워야 안다.

<2017년 4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26.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이지 않으면 ‘보통’으로 끝난다.

27. <영적인 자>는 ‘영’으로 보고 깨닫고 하니, 월명동 같은 불모지도 소생시켜 창대하게 만들었다.
28. 환경 좋고 엄청난 지역에서 살았어도 ‘영적’이지 못하니, ‘보통 인생’이 되어 ‘육적’으로만 즐기고 끝났다.
29. 천하 최고의 배경을 두고 살아도 ‘육적’으로 살면 그만큼 ‘육의 지능’대로만 보이고, 마음도 생각도 못 누리고 살아간다.
30. <영적인 자>는 환경이 어떻지라도 ‘영적’으로 보고 느끼니 ‘딴 세상’이다.
31. 천하의 비경인 백두산 천지와 금강산을 배경으로 두고 살아도 ‘영적’이지 못하고 ‘육의 차원’에서 사니 기쁨도 행함도 그 정도이고, 늘 평화를 깨뜨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무기나 만들고 산다. 고로 그 마음이 불안과 초조와 공포이고, 그 육의 삶은 가난과 헐벗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도 곤고함과 지옥의 고통 속에 있다.
3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어라. 그러지 않으면 지구 세상을 누비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봐도 ‘육적 차원의 것’만 느끼고 기쁨을 얻는다. 고로 천분의 1, 만분의 1밖에 못 누린다. 영적인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을 알고 ‘구원자’와 함께 누린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닫고 ‘영’으로 누리니, ‘육’도 감동받고 인간으로서 신의 경지에서 누리게 된다.
33. 3년 전에 한국에서 침몰된 배 <세월호>를 인양해 보니, 허무한 형상만 남아 있었다. 녹슬고 썩어서 보는 자들마다 섬뜩하다고 했다. 관광객들을 태우고 신선같이 바다 위를 떠다니던 배인데, 각종 법을 무시하고 항해하다가 침몰됐다. 개인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면, 사망으로 침몰되어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된다.
34. <자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놓지 않고 사는 자>는 성공했어도 그것은 ‘잠깐이면 끝나는 육적 성공’이다. 이러한 성공으로 누리는 시간은 ‘구원받은 영의 영원한 성공’에 비하면 ‘몇 초’에 불과하다.
35.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시작되듯이, <신약역사>가 끝나면 <새 역사>가 시작된다. 성경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며 혼인 잔치 한다.” 했는데, 이 말씀은 <신약역사>를 두고 한 말씀이 아니다. 신약의 미래, 다시 오는 <새 시대 성약역사>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이 역사는 ‘다시 오신 주를 맞은 세계’다. 이 세계에만 이 말씀이 해당된다. 그러나 그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세계에도 그로 인한 혜택을 베푸신다.
36. <결혼해서 신랑을 맞은 자>만 ‘그에 해당되는 예언’을 이루고,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그 동네도 ‘혼인 잔치에 해당되는 혜택’을 본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보내어 천년왕국 혼인 잔치를 한다고 한 성경의 예언>은 ‘메시아를 맞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민족과 세계도 ‘시대의 혜택’을 본다. 그러나 <메시아를 맞고 믿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자들>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왕 같은 자들’이 되어 ‘천년왕국 혼인 잔치’를 한다. 항상 ‘직접 하는 주인’과 ‘주변인들’과는 누리는 것도, 얻는 것도, 기쁨도, 혜택도 차이가 있다. 예수님 때도 <메시아가 육으로 와서 직접 행했을 때 따른 자들>만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그로 인해 누렸다. 그러나 그 영향으로 <따르지 않던 자들>까지 ‘시대의 혜택’은 받았다.
37. 하나님이 역사를 펴시면 ‘믿고 따르며 같이 행한 자들’은 근본의 뜻을 이룬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시대’에까지 은혜를 베푸시어 시대의 혜택을 보게 된다.
38.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신약역사>를 펴실 때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약 주관권에서 해방되어 기뻐하며 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 <새 역사>를 펴실 때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시대 주관권에서 벗어나고 사탄을 육에 가두고 근본의 뜻을 이룬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은혜를 베푸신다.
39. 성경에 “천 년 동안 사탄을 육에 가둔다.” 했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를 믿고 따르며 새 역사에 참여한 자들’만 이

룬다.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때 사탄을 옥에 가두게 되고, 그 옥도 영도 휴거되어 옥은 땅에서, 영은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로 인해 지구 세상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세계가 와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 혜택을 같이 보게 된다.

40.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다 찾아온다. 모두 처한 대로 그 혜택을 본다. 그러나 '시대 핵심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시대 역사를 누리며 뜻을 이루고,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시대 역사는 누리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혜택은 같이 본다.

41. <새 시대>가 와야 '하나님의 역사의 혜택'을 제대로 받는다.

42. <봄>은 때가 오면 한 민족 전체에게 다 온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고, 꽃나무를 심은 자들'만 봄의 혜택을 다 받는다. 그러지 못한 자들은 봄이 왔어도 자기가 처한 대로만 그 혜택을 받는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43. 하나님은 심판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태양'을 비춰 주신다. 똑같이 해 주셔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 근본적인 축복을 얻고 비와 태양으로 인한 축복을 더 누린다.

44. 사탄을 쫓아내어 사탄의 영향은 안 받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행한 대로 받는다. 사탄이 없어도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지 못하니, 그 영향이 크다.

45. 하나님의 새 역사에 와서 살아도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시대의 혜택'만 받지, '행함으로 인한 축복'은 받지 못한다.

46. 가령 월명동에 갔다 하자. 산책로가 있고 수영장이 있고 약수가 있어도 '산책로를 걷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약수를 먹으며 행하는 자'는 해당되는 것들을 다 받지만, '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에 해당되는 환경의 혜택만 받는다. 이와 같이 새 역사에 와서 살아도 '새 역사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누리고 받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새 역사에 해당되는 시대의 혜택만 받는다. 새 역사에 왔어도 얼마나 얻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변화되느냐는 '실천'에 따라 좌우된다. '영원한 것'까지 그러하다.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만이 아는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달리하면서 '목적'을 이루면, 보고 듣고 같이 하면서도 모른다.

2. 하나님은 <자기만이 아는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달리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창조 목적 역사'와 '각종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사람들은 목적을 다하였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3.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는 지혜>를 가지고 '방법'을 달리하여 '자신의 목적과 뜻'을 행하고 이루신다.

4. 하나님은 <자신만의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을 가지고 수만 가지로 '방법'을 달리하여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목적'을 이루며 가신다.

5. 인간은 '절대자 신의 차원'을 모르니, 하나님이 이끌며 행하셔도 모른다.

6. 어린아이가 부모의 뜻과 심정을 모르고 거부하고 안 해도, 부모는 생각이 뛰어나니 <자신만이 아는 지혜>로 '다른 방법'으로 다 한다. 가령 어린아이가 '딸기'를 안 먹으려 한다 하자. 그런데 '우유'는 좋아한다 하자. 부모는 '방법'을 달리하여 딸기에 우유를 넣고 갈아서 '딸기 우유'를 만들어 어린아이 스스로 먹게 한다.

7. 이와 같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거부하며 안 하면,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는 지혜>를 가지고 수천, 수

만 가지로 ‘방법’을 달리하여 인간 스스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신다. 그러고는 다 말하지 않고 끝내신다. 사람들이 믿고 따르거나 스스로 차원을 높이거나 책임을 하면 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생각과 행실이 일체 되면 이야기하기도 하신다.

8.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극적으로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하자. 그런데 ‘그들을 통해 꼭 해야 할 일, 만들 것’이 있다 하자.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연결되어 함께해야 되는데 단절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한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 일을 시켜 그것을 만들게 하시고, 후에 그들이 감동받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팔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원하는 대로 ‘목적’을 이루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을 ‘보낸 구원자’가 깨닫게 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에게 말씀하신다.

9. 어느 때는 <불의한 자들이 몸부림쳐 모은 재물이나 귀한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팔게 하여, 사랑하는 자가 얻게 하신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게 하여 ‘얻기 불가능한 것’을 얻게 해 주신다.

11.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으니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우고, 구하고, 삼위의 뜻과 심정을 알아드리고, 삼위를 더욱 사랑하고 삼위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게 하고, 너는 ‘감격’으로 받게 하여라.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시간같이 1초도 멈추지 않고 다스리시고 행하신다.

2.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역사를 펴시고 이제 끝내 가시는데, 기성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만 있다. <끝내는 역사>의 ‘뒷일’을 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청소하고 있는데, 기성은 역사 펴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

4. 잔치를 다 하고 일꾼들을 불러서 뒷일을 하는데, 잔치 준비를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격이다. 이미 <2000년 신약역사 자녀권 잔치>는 끝났다. 이제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잔치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역사는 ‘구시대 자녀권’에서 하지 않고, ‘새 시대 신부 차원의 세계’에서 한다. <자녀권 잔치>도 ‘구약 율법의 종 주관권’에서 하지 않고 ‘신약 자녀권 세계’에서 했듯이, <신부권 잔치>도 ‘신약 자녀권’에서 하지 않고 ‘새 역사 신부 세계’에서 한다. 고로 자녀권에 있는 자들은 주관권이 다르니, ‘신부권 잔치 역사’를 모른다.

5. <구약>은 ‘주인과 종 세계’ 같고, <신약>은 ‘부모와 자녀 세계’ 같고, <성약>은 ‘신랑과 신부, 애인 세계’ 같다. 하나님은 구분된 대로 그 시대 역사를 펴 오셨고, 또 펴 가신다.

6. <구약 - 신약 - 성약>은 시대가 완전히 다르니, 각각 쪼개서 역사를 펴 나가신다.

7. <구약 때>에는 메시아나 그의 시대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역사의 때도 오지 않았으니, <신약 자녀권 역사>를 펼 수 없었다. 때가 되지 않았으니 자녀 역사는 펴지 못하고 종급 역사를 펴 나간 것과 같다. 이것이 ‘구약 역사’다. 때가 오니 <자녀권 신약역사>를 펴 나갔다. ‘종’이 자녀 역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펴 나간다. 이와 같이 ‘구약인들’이 <자녀권 역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인들’이 <자녀권 역사>를 펴 나갔다. <신약 자녀권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해서 2000년 동안 펴 왔다. 그때는 <성약 신부권 역사>는 아직 시대도 안 왔고 그 시대 사람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으니 ‘신약’에서는 못 한다. <신약>과 <성약>은 ‘본질’이 다르다. <성약 신부권 역사>는 ‘성약의 시대’가 오면 ‘새 역사의 신부들’이 ‘신부의 표상인 구원자’와 함께 삼위를 신랑으로 모시고 펴 나간다.

8. <구약역사>는 ‘구약시대 종 주관권’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중심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펴 나가고, <신약역사>는 ‘신약시대 자녀 주관권’에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보낸 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펴 나가고, <성약역사>는 ‘성약시대 신부 주관권’에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보낸 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펴 나간다.
9. 지금 이 시대에는 <성약 신부급 역사>를 펴 나가신다. 성경말씀대로 1000년 동안 기간을 두고 펴 나가신다. <구약 4000년 종급 역사>에서는 ‘종 세계 역사’를 펴냈고, <신약 2000년 자녀급 역사>에서는 ‘자녀 세계 역사’를 펴냈다.
10. 그 시대에 태어나야 ‘그 주관권 역사’를 만날 수 있고,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그 주관권 역사’를 따라야 된다.
11. <종 세계 - 자녀 세계 - 신부 세계>는 ‘시대’도 다르고 ‘급’도 다르고 ‘하나님의 대함’도 다르니, 하나님은 각각 ‘다른 목적과 뜻’을 두고 역사해 나가신다.
12. 한 가정이라도 <부모 세대 - 자녀 세대 - 손주 세대>의 삶이 각각 다르다. 각자 ‘다른 주관권’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목적과 뜻’을 이루면서 희망으로 기뻐하며 살아간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구약 부모 세계 - 신약 자녀 세계 - 성약 신부 세계>로 구분되어 역사를 펴 나가신다.
13. <구약>에서 ‘신약’을 못 다스리고, <신약>에서 ‘성약’을 못 다스린다. 각각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면서 그 시대를 만난 해당되는 자들’이 ‘그 시대 차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14. 하늘 공중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아라. 해와 달과 별들이 서로 공존하되, 각각 자기 존재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역사 <구약 - 신약 - 성약>도 그러하다.
15. 각각 자기 주관권에서 존재하는 것이 <만물들의 이치>이며 <하나님 역사의 이치>다.
16. 시대를 한 가정에 비유해 보면 부모는 나이 들어 죽어 가는 길을 가는데, 다시 해 뜨는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고, <자녀들>은 ‘자녀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17. <부모권>에서 ‘자녀권’을 주관하고 다스려 자기들같이 살라고 하나 ‘본질의 삶’이 다르니 안 된다.
18. <구약 종 주관권>은 종 세계만 다스리고, <신약 자녀 주관권>은 자녀들 세계만 다스리고, <성약 신부 애인 주관권>은 평생 같이 사는 사랑하는 자만 다스린다. 이것이 ‘천륜의 법’이며 ‘이치’다.
19. 각 시대마다 ‘자기 길에 처한 세계의 삶’이 바빠서 ‘다른 세계’를 다스리거나 돌아볼 수 없고, 하려고 해도 되지 못하고, 다른 세계는 ‘턱’이 높고 ‘차원’이 높아서 오르지도 못한다. 각 시대는 ‘삶’이 다르고 ‘주관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그 시대 그 주관권이다.
20.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신부 세계’에 두시고, 6000년 동안 종교 역사를 펴 오셨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신부급 구원자’를 보내어 ‘신부 세계, 창조 목적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신부 세계 역사>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사는 자들’만 안다.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그 주관권 세계에 온 자들’만 안다. 다른 주관권 세계에서 사는 자들은 ‘신부 세계’를 생각도 못 한다. 하나님은 <종급 세계, 자녀급 세계>에서 ‘신부급 역사’를 이루지 않으신다. 사고와 생각도, 급도, 하나님의 대함도, 주관권도 다르기 때문이다.
21. <신부 시대>에서 ‘하늘 신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닫고 ‘그 급의 생각과 행실’로 살지 않으면, 신부 시대만 만났지 보람이 없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부를 대함’이 완전히 다르시다. <신부들>을 ‘신부급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삼위도 ‘신부의 사랑’을 못 받으시니, 절대 ‘신부급 사랑’으로 대하신다. 다만 신부들이 ‘신부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신약 자녀권의 자녀들>은 ‘자녀급’으로만 사랑하신다. 자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자녀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녀들도 ‘자녀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만일 하나님이 <자녀들>을 ‘신부’같이 사

랑한다면, 이는 부모가 자녀를 취하는 격이 된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을 절대 '신부'같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녀급'으로 사랑하신다. <신부급 사랑>은 '신부들'에게 하신다.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좋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주를 대하면, 하나님도 주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해 주신다.
2. 사람이 힘들어도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도 주도 더 좋은 데로 인도하여 더 좋은 일을 주신다.
3. 하나님과 주가 맡긴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주가 맡긴 생명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가르치고 키우는지 '3년'쯤 보시고, 하나님은 저울과 자를 가지고 직접 가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충성스럽게 잘했는지 저울에 달아 보시고 자로 재 보신다. 잘했으면 "여기는 네가 일하기에 작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데로 가서 주의 기쁨의 일에 참여하여라." 하신다.
4. 전능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으로 하면서 마음도 행실도 좋게 변화되면, 삼위일체도 '완전히 변화된 마음'으로 대하신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받으려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고 마음도 행실도 좋게 변화되어야.
6. 시편을 보면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 했다.
7. <사람들의 천 마디 말>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마디 말>이 낫다.
8.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면 '만물'을 통해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9.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면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신다.
10. 하나님은 할 말이 있으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
11.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말씀은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12.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1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도 할 말이 많으시고, 모르는 자에게도 할 말이 많으시다.
14. 신은 '마음'으로 말이 전달되게 하신다.
15.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생각하셔도 그 생각이 '말'이 되어 '사람의 뇌'에 전달되어 깨닫는다.
16.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같이 '영파'로 전달된다.
17.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을 보내면 '뇌, 마음'으로 받고 깨닫게 된다.
18.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작용된 것인 줄로만 안다.

19.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내용>은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20. 하나님은 그때마다 합당하게 말씀하신다. 모르는 것을 알려 주며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며 깨우쳐 주시고,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스스로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신다.

21.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으면 깨달았다는 답변이 확실해야, 하나님과 더욱 대화가 된다.

22.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계시의 때’다. 하나님은 새벽에 많이 대화하시고,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실천자가 하나님께 물으면 대화하신다.

23.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릴 때> ‘대화’가 잘된다.

24.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껏 돕고 역사해 오신 것>을 스스로 진실로 깨닫고 하나님을 불러라. 물어봐라.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물으면, 합당하니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25. 하나님과 성령과 대화하려면, 사람이 먼저 대화해야 된다. 사람이 먼저 대화해야 자기 생각이 열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느끼고 깨달아진다.

26. 하나님과 성령이 오셔도, 사람이 모르면 모르고 끝난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과 성령을 부르며 다가가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언제든지 알고 대화하신다.

27. 신보다 사람이 먼저 신을 찾고 불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8. 사람은 신이 와서 대화해도 모른다. 신은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아신다. 고로 사람이 먼저 신을 부르고 찾고 대화해야 자기 마음이 열려서 알고, 신과 대화하게 된다.

29.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어 일순간 지구 세상 74억 명에게 한 마디 하시면, 모두 같은 시간에 깨닫게 하신다.

30.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보면, 정말 크고 웅장하다. 그에 비해 사람들의 목소리는 작고 가늘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구 세상 전체가 들을 정도로 크다. 감히 인간이 흉내 낼 수 없이 크고도 크다. 지구가 울릴 정도다.

31. 선생이 베트남 전쟁터에 있을 때였다. 작전을 하다가 적과 내가 서로 총을 맞대고 부딪혔을 때가 있었다. 나는 바위를 기어오르고 있던 상태라 불리했고, 적은 나무 뒤에서 은신하며 총을 겨누고 있던 상태라 유리했다. 나는 기어오르고 있으니 총구를 겨누지 못하고 있었고, 적은 자기 몸을 은신한 채 내 가슴에 정확히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불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사~~랑~~하~~라~~~~~” 하고,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크고도 큰 음성이 들렸다.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사랑하러 적에게 가면, 적이 먼저 총을 쏘서 제가 죽는데요?” 하니, 또 동일하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사~~랑~~하~~라~~~~~” 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적이 총을 쏘니, 전쟁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며 적에게 다가갔다. 적에게 다가가는데, 적의 얼굴이 선연히 ‘내 여동생의 얼굴’로 보였다. 적은 내게 총을 쏘지 않았다. 가서 적을 끌어안았고, 40분 동안 대화했다. 그는 베트남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라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그때는 다 통했다. “왜 우리가 서로 죽이게 되었나. 서로 죽일 만큼 잘못도 없는데, 전쟁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 서로 죽었다면 너도 나도 죽어서 끝났을 것이다.” 하며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순간 적과 나뿐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니, 적도 살고 나도 살았다.

32. 그러나 하나님은 평소에 이같이 지구가 울릴 정도로 크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따로 있다. 그때는 죽기 직전의 상황이니, 신의 음성을 분별하고 즉시 행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의 소리 같이 대화로 말씀하셨으면, 선생 스스로의 생각인 줄 알고 지체하다가 큰일이 났을 것이다.

33. 마음속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만물을 통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

씀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여라. 너의 욕도 영도 살리고, 생명들도 살리게 된다.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의 죽음>은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다. 해결해야 된다.
2. <죽음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자기 욕신을 통해 자기 영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3. <욕신>은 일찍 죽든지 늦게 죽든지, 결국 다 죽는다.
4.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차피 '욕'은 다 죽으니, 욕이 죽기 전에 전능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영을 구원하여 살리는 길'이다.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없다.
5. (하나님) 기도를 하여라. 기도하고 간구하여 해 주는 것과 그냥 해 주는 것은 다르다.
6. (하나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일삼는 자, 살인 행위를 하는 자들을 두고 나 전능자에게 기도를 하여라. 그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로 인해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자들로 생각하겠다.
7. 그들을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들으시고 3.16 이후에 '상황'을 트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느냐?
8. 온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살인을 하려고 무기를 만드는 북한과, 온 세계의 그런 나라들은 모두 그 행위대로 갚아 달라고, 각종 것으로 심판해 달라고, 그 목적이 허사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여라.
9. 전쟁하려는 사람이나 나라는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살인마가 되어 부모와 형제와 애인을 죽이듯 미친 행위를 한다.
10.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국가의 부정부패'를 드러내 없애듯 하리라.
11. 전쟁과 미움과 혈기와 감정적인 일들을 모두 회개하며 기도하여라. 민족이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거스른 죄들을 회개하며 기도하여라. 그 죄로 인해 전쟁도, 재앙도, 재난도, 화도, 심판도 온다.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눈이 밝아야 흰 것이라도 희게 보인다.
2. 눈이 밝아야 밝게 보인다.
3. 눈이 흐리면 밝은 것도 밝게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마음과 생각이 밝지 않으면, 사람도 존재물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4. 하고 싶어야 하게 된다.
5.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 이것은 '자유의지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운명을 좌우하는지 깨달아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운명도 생명의 운명도 좌우시킨다.
6.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보이고 주관을 받는다.

7.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때에 따라 달리 보이고 느낀다. 시력이 떨어지듯, ‘판단과 생각’이 떨어질 때가 있다. 그때 보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때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8. 하루를 살아도 순간 눈이 흐려져 성능을 못 할 때가 있고, 눈이 밝아져 성능을 제대로 할 때가 있다. 마음과 생각도 그러하다.
9. 어느 때 물건과 사물을 보았느냐. 어느 때 사람을 보았느냐. - 이것이 그리 중하다. 생각과 판단이 온전하냐, 흐려졌느냐. - 이에 따라 ‘정상’으로 보느냐, ‘비정상’으로 보느냐가 좌우된다.
10. 새벽에 일어나서 평소와 같이 이를 닦고 거울로 이를 보니, 약간 누런색으로 보였다. 낮에는 이를 닦으면 깨끗하게 보이는데, 새벽에는 또 닦고 봐도 누렇게 보였다. 치아 색이 변했나 확인하니,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니 눈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인 것이다. 일어나서 활동하니 다시 제 시력을 찾아서 잘 보였다. 낮에도 눈을 무리하게 쓰면, 순간 시력이 떨어져서 흐리게 보인다. 이와 같이 <마음>이 정상이지 않을 때 보거나 생각하면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존재물, 정상적인 사람도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느낀다. 또 상대의 마음과 행위가 제대로 안 보여서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11. <마음과 생각>을 ‘정상’으로 하고, 존재물도 사람도 보고 대하고 판단해야 된다.
12. <자기 마음과 생각의 성능>이 ‘정상’일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옳게 판단하고 보고 듣고 말한다.
13. <자기 마음과 생각의 성능>이 비정상이거나, 감정이 있을 때나, 상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자기 그릇된 마음대로 판단한다. 고로 그 말을 듣는 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그릇된 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게 된다.
14. 저마다 ‘시력’이 다르듯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 제 눈으로 다시 보고, 제 생각으로 다시 보아라.
15. <마음과 생각이 정상일 때> 봐야 된다.
16.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일체 시켜라. 그리고 보고 판단하여라. 그리하면 온전하게 되어 정상으로 보이고 판단하게 된다.
17. 사람이든 존재물이든 제대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도록 먼저 ‘마음과 생각을 정상으로 만들기’다.
18. <마음과 생각>이 어떤 그릇된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하고서 보아라. 그래야 좋은 것은 좋게 보이고, 나쁜 것은 나쁘게 보이고 제대로 판단하게 된다.
19. 돌 작품을 사러 갔을 때 어떤 돌은 희귀종으로 좋게 보였다. 그 후에 다시 가서 보니, 그 돌이 전같이 희귀종 형상으로 안 보이고 보통으로 보였다. 그 돌을 처음 봤을 때와 나중에 봤을 때,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 달리 보인 것이다. 고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시켜라. 그러면 높고 낮음을 알게 하시고,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신다.
20. 사진으로 좋은 돌을 분별하려 했다. 처음 볼 때는 보통으로 보였다. 그러다 1년 후에 그 돌 사진을 다시 보니, 희귀종 돌로 보였다.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던 때였다. ‘기도하니 모두 좋게 보이는구나.’ 생각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다. 순간 착시인지, 아닌지, 이 돌이 예전보다 특이하고 귀한 모양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상으로 하니, 존재물의 가치와 모양대로 제대로 보이는 것이다.” 하셨다.
21. 하나님은 <상징>으로 연결시켜 ‘뜻이 같은 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사계도 하신다.
22. 어떤 작품 돌을 샀는데, 살 때는 그 돌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다. 그러다 결국 ‘모양과 형상이 좋은 돌이구나.’ 깨달았다. 하나님께 이 돌은 무엇이 특별히 좋냐고 하며, 돌 값 이상의 좋은 점을 알려 달라고 여러 날을 기도하며 물었다. 결국 ‘그 돌의 모양’과 ‘그 모양의 사연들’을 깨달았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사랑의 작품 돌’

이었다. 그런 모양을 한 돌을 더 사려 해도 더 이상은 없었다.

23. 성전을 사거나 전세로 얻더라도 ‘보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차원’대로 찾는다. 고로 성전을 찾을 때는 작품을 보듯 전문가와 같이 찾고, 하나님의 몸 된 성전이니 깊이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의 차원을 높이고 주와 일체 되어 보화 찾듯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은 사연’을 깨닫게 하신다.

24. <가나안 복지>를 정탐하고 제대로 보고 판단한 것같이 해라. 그래야 제대로 구분하고 판단한다.

25. <깊이 깨닫는 자>만 스릴을 느껴서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이해한다. 고로 제대로 느끼고 마음이 하고 싶으니, 스스로 뛰게 된다.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핵>을 잡으면 ‘거기에 속한 대상’도 잡는다.

2.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목적>을 이뤄야 ‘황금성 천국 잔치’를 하시고 ‘1000년 왕국 혼인 잔치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고서는 절대 ‘황금성 천국 역사’도 안 하신다.

3. 하나님은 ‘좋은 날’을 맞춰서 행하신다.

4. 저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날>은 ‘자기가 태어난 날’이다. 그리고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최고의 목적과 희망을 이룬 날’이다.

5.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이같이 좋은 날>을 맞춰서 ‘최고 목적’을 행하여 마지막을 장식하시고, ‘좋은 것’도 주신다.

6. <1000년 왕국 혼인 잔치 때>는 ‘좋은 시대’이니, <그 시대를 맞아 그 시대에 속해 사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축복’을 받는다.

7.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날>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육신 쓰고 오신 날’이다. 하나님은 그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잔치’하신다.

8. <개인에게 최고로 좋은 날>은 ‘주를 맞은 날’이다. 육도 영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9. <이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난 날>은 ‘이 세상에 전능하신 성자가 임한 날’이다.

10. 전능하신 성자는 ‘구원자가 태어난 날’에 임하여, 역사의 때를 맞추고 계산하기 좋게 행하셨다.

11. 성자는 이 시대 구원자가 태어난 지 70년이 되던 해에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신부로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떠나셨다.

12. 하나님은 ‘좋은 날’에 때를 맞춰 행하신다. 이에 따라 <전능하신 성자>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으로 ‘구원자가 태어난 날’에 오셨고 ‘구원자가 태어난 날’에 떠나셨다. 이날이 ‘3.16’이다. 이날이 성경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한 날이다. 이는 성자가 그 육에게 하신 말씀이다.

13. (하나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하는 성경말씀을 이루었다. <3>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1>은 ‘태어남의 목적의 시작, 알파’를 말하고, <6>은 ‘끝나는 수, 오메가’를 말한다. 곧 ‘삼위일체가 보낸 자를 통해 창조 목적의 뜻을 시작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끝내는 것’을 말한다. <6>은 ‘끝나는 수’로서 ‘창조 6일, 구원역사 6000년’을 뜻한다. 요일로 보면 ‘토요일 같은 날’이니라. 구원역사 6000년 만에 하늘의 시간으로 6일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었다. <3. 16> 이날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크고 뜻있는 날'이다.

14. <3>은 '삼위일체를 상징한 수'이며 '하늘 수'다. <1>은 '시작 수'다. <6>은 '끝나는 수'다. <끝나는 수>에 '천지와 인간의 6일 창조'도 끝났고, '신구약 6000년 역사'도 끝났고,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창조 목적'도 이루었다. 고로 '사탄의 때'도 끝난다. <7>은 '쉬는 때, 잔치의 때'다. 고로 <6수>가 끝나니, 1000년 동안 '휴거 혼인 잔치'를 한다.

15.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수'에 따라 역사하시고, '그 때'를 맞춰 행하신다.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멋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2. <제대로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3. <지혜롭게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4. <아름답게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6. <사랑과 진리와 화평으로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7. <제때 순리대로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8. <하나님의 구상>대로 해야 멋있게 한다.

9. 인생을 멋있게, 아름답게, 의롭게, 가치 있게 살아가.

10. 예수님은 시대가 불신하니, '시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육신이 죽어 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고 부활시키셨다.

11. 이 시대는 시대가 책임을 못 하고 시대 구원자를 불신하니, 구원자가 '대신 고통을 당해 주면서 십자가를 져 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여,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12.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멋있게 하는 방법이다.

13. 전체의 구조가 맞아야 되고, 그것이 기능을 잘하고, 쓸 때도 지장이 없어야 된다.

14. <길이, 넓이, 높이>가 맞고 <비율>이 맞아야 멋있다.

15. 아름답고 멋있으려면, <크기>와 <생긴 형상과 모양>을 갖추기다.

16. 그림을 그리듯이, 자꾸 수정하고 만들기다.

17. 강변에서 수백만 개의 조약돌 중에서 '제일 멋있는 것'을 찾아서 줍듯이, 행할 때도 '제일 멋있는 방법'을 찾아 골라서 해야 된다.

18. <방법>은 많다. 자로 재 보고 저울에 달아 보듯 '그중의 제일 좋은 방법'을 골라서 하기다.

19. <더 좋은 방법>은 많고도 많다. <한 면>만 멋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면>으로, 혹은 <세 면>으로, 혹은 <네 면>으로 나눠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앞쪽 한 면’만 최고 멋있고 예쁘게 보이게 창조하셨고, ‘양쪽 면’은 그다음으로 멋있게 보이게 창조하셨고, ‘뒤쪽 면’은 멋있는 얼굴을 싸 주기 위해 창조하셨다. <자연 작품>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품위가 있다. <월명동 야심작 백보좌 작품>도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사람의 형체>가 ‘가장 멋있는 구상과 구조’다. 몸의 각 지체가 전체적으로 매치가 되면서, 각각 다른 지체에 지장 없이 위치가 선정되어 100% 기능을 하게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집’도 짓고 ‘환경’도 개발하고 만들어라. 신앙도 그러하다.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목표> 없이 살면, ‘삶’이 매시간 다른 데로 가진다.
2. 배를 바다에 띄워 놓고 배에 타고 가만히 있으면, 배는 사방으로 가진다. 이와 같이 사람이 <목표> 없이 가만히 있으면, ‘삶’이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가진다.
3. 매시간 ‘그 시간의 목표’를 정하고, <생각>으로 운전하면서 가야 된다.
4. <삶>은 ‘바다’다. <자기>는 ‘배’다. <마음과 생각>은 ‘운전대’다.
5. <목표 없는 삶>은 항상 ‘그 주관권의 삶’이다.
6. <삶의 속력>에 따라서 ‘주관권’이 달라진다.
7. <생각>에 따라서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
8. 생각을 안 하고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살면, ‘무의식의 삶’이 연속된다.
9.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뽑고 택해서 ‘합당한 자’가 해야 된다. 나머지는 모르니 할 수가 없다.
10. <택한 자>만 할 수 있다.
11. 하나님은 ‘아는 자’를 택하신다. 그를 통해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12. <절대 믿고 따르던 것>도 어느 때는 안 믿어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도 하게 된다. 이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사고’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러다 <자기가 믿고 행하여 해 놓은 것>을 보면, 사고가 다시 돌아온다.
13. <자기가 믿고 행한 것>이 없으면, ‘근거’와 ‘증거 거리’가 없으니 안 믿어진다.
14.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행한 것’이 없으면, ‘믿음과 확신’이 없다.
15. <자기가 믿고 행하고 수고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자기 보화’이니 그로 인해 좋아하고, 시인하고, 믿음이 넘어지지 않고, 때에 따라 마음이 넘어져도 그것을 잡고 다시 일어난다.
16. 자기가 믿고 행하고 수고하여 ‘땅’에도 쌓아 놓고 ‘영의 세계 황금성 천국’에서(에도) 쌓아 놓으면 육신이 유혹되어 넘어지지도 않고, 순간 심리적으로 유혹됐다가도 다시 돌아온다.
17. 수고하고 애쓰며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어 놓으니, 다른 데가 좋다고 유혹해도 절대적인 중심을 잡고 유혹되지 않는다.

18. <성약역사의 말씀을 배우고 자기를 위해 공적을 세운 자>는 ‘성약역사에 자기 보물을 쌓아 둔 자다.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과 생각과 몸’이 있기에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는다.

19. <영적 사랑의 조건과 신앙을 갖추고, 영적 사랑을 완전히 채운 자>만이 그때부터 ‘육적인 사랑’도 배우고 하나씩 행하여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거리에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도 항상 인간들을 쳐다보신다. 그러다 어느 때는 ‘한 명’을 두고, 통하려고 찾아오신다. 그러나 ‘그 사람 본인’이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자가 자기 옆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모르니, 그냥 가신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 쪽에서 먼저 찾는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마음 문’을 열어야 통한다. 전능자이시라 사람이 마음 문을 안 열어도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통하시기는 한다. 이때는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때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 고로 ‘본인’이 삼위께 가야 된다. 마음 문을 열고 찾고 불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한다. 삼위 입장에서 인간과 통할 일이 없어도,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삼위를 찾으며 ‘원하는 것’을 삼위께 이야기하면 일방통행으로 통한다. 하나님 쪽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

2. 삼위가 인간과 통하려고 찾아오셔도 그 사람 본인이 모르면 그냥 가신다. 고로 삼위가 먼저 인간을 찾으면, 거의 못 통하고 끝난다. 인간이 마음 문을 열고 삼위를 부르며 할 말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 쪽은 항상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통하게 된다.

3. 시대 보낸 자는 ‘육’이니, 특별한 것만 제외하고는 꼭 말해야 한다. 말하되,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주가 아는 것이 라도 보여 주고 말해 줘야 된다.

4. 본인이 마음 문을 열고 할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빠르다. 인간은 하나님이 옆에 오셔도 모르지만, 하나님 쪽은 항상 열려 있으니 인간이 말하면 아시기 때문이다.

5. 성령도 주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만나는 것은 어렵다. 성령과 주가 자기에게 와도 모르기 때문이다. 고로 자기가 사연과 할 말을 가지고 성령과 주를 찾아가라. 그러면 빠르다. 아쉬운 쪽이 찾아가는 것이다.

6. 시대 보낸 자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편지로 전화로 찾아가고, 혹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다. 성령과 주 앞에 너도 그렇게 해라.

7. 왜 찾아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찾아가라.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르다.

8. 빛을 잡듯 속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찾아가라.

9. 왕이 백성에게 찾아가는 것이 빠르겠느냐. 백성이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빠르겠느냐. 백성이 왕을 찾아가는 것이 빠르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그러하니라. 할 말이 있는 자가 먼저 찾아가기다.

10. 빼면 못 느낀다. 입에 음식물을 넣었다 빼면 깨물 것도, 씹을 것도, 목으로 넘길 것도 없는데 느끼겠느냐. 그렇게 계속 빼다 보면 영양실조가 된다. 뒤로 빼고, 주일예배 빼고, 수요일예배 빼고, 새벽기도 빼고, 모임 빼고, 집회 빼고, 계속 빼다 보면 ‘0’만 남는다. 그러면 사람이 ‘공’을 보면 차고 싶듯이, 사탄이 ‘공’처럼 차고 다니며 좋아한다.

11. 넣으면 느낀다. 입에 넣고 깨물 것이 있고 넘길 것이 있어야 온몸이 느끼고, 힘이 오고, 즉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양이 전달되고, 배가 부르고, 좋아서 웃는다. 이와 같이 더 기도하기, 더 전도하기, 더 관리하기, 더 감사하기, 더 가르치기, 더 외치기, 더 화목하기, 더 희생하기, 더 일찍 일어나기, 더 열심히 성령과 주와 소통하기다. (초안) 그러면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면 순간 어지럽듯이, 너무 높은 차원에 오르고 까마득한 위치에 올라서 어지럽다. 그러다 새같이 날아서 다른 주관권 세계로 간다.

12. 그것 해 놓고 많이 했다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한 만큼 거짓 없이 자기가 변화되어 얻는다. 아직은 얻은 것이 별로 없다. 더해라. 빼지 마라.
13.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빼는 것’이다. 더해라. 더하면 ‘높은 숫자’가 되듯, 너도 변화되고 차원 높게 달라진다. <할 일을 하는 것>이 ‘더하는 것’이다. 더하면 ‘재창조’가 일어난다.
14. 네 마음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빼지 말아라.
15. 네 마음에서 ‘진리와 사랑’을 빼지 말아라.
16.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17. <많이> 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는 많이 한 것 같아도 실상은 생각보다 적다.
18. <차고 넘치게> 해야 많이 한 것이다.
19.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라.
20. 10가지, 100가지 다 풀어야 완성된다.
21. 집을 지을 때나, 작품을 만들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자동차를 만들 때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해야만 다 만들어 완성하게 된다. 사람도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된다.
22.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화동하고, 먹고 마셨어도 각자 자기 집이나 거처로 돌아갔을 때 ‘환경 문제’나 ‘각종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 그래야 안팎으로 모두 천국이 된다. 고로 생명을 관리할 때는 쫓아가서 도와줘라. 개인 면담을 해 주어 속 이야기를 하게 하고 문제를 풀어 줘라. 그래야 곤고하지 않고 소원을 성취한다. 이것이 안 되니 생명들이 방향을 돌리거나 죽어 나간다.
23. 모두 ‘자기 할 일을 실천’하여 옛것을 장사 지내라.
24. <자기가 잘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래야 ‘자기 실력’을 내놓을 수 있다. 공부는 못해도 사업을 잘하는 자가 있고, 사업은 못해도 운동을 잘하는 자가 있다. 각각 개성대로다.
25. <자기 특기>가 있고, <국가가 준 사명>이 있고, <하늘이 준 사명>이 있다.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성은 새 시대가 왔어도 구시대 신앙을 못 버리고 계속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나의 새 시대가 왔어도 모르고 못 오면, 구시대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셨다.
2. <시대의 강을 건너 새 시대로 온 자>는 새 시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건너오지 못하고 사는 자>는 거기 법을 지키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된다.
3. 어느 편의 삶이 좋고 기쁘고 희망차겠느냐. <시대의 강을 건너온 자>는 기다리던 것을 만나 희망을 이루었고, <건너지 못한 자>는 기다리며 살고 있다. 고로 <시대의 강을 건너 새 시대로 온 자>가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
4. 구시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조건을 세우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강 건너의 삶’을 주어 ‘새로운 역사’를 펴게 한 것이다. 고로 알고 와야 희망을 이룬다.

5.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으나, 마지막 '홍해 바다'를 건너야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나 '종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요단강을 건너 자들'만 자기 선조들이 살던 고향 땅, 보화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6.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시대 기성의 강'을 건너와야 '새 시대 사랑과 진리의 보화의 땅'에 들어올 수 있다.
7. <젊었을 때> '가로막힌 땅'을 건너와야, 긴 세월을 '새로운 땅'에서 살 수 있다. 다 늙어서 건너오면 기뻐하며 살 시간이 없고, 인생 해 그들을 맞게 된다.
8. 서두르고 재촉해야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린다.
9. <환경의 변화>도 돼야 하지만, <심령의 변화>가 되어 '정신 발달, 삶의 발달, 영적 발달'이 돼야 한다.
10. 육의 세계에서 <자기 육>이 가는 대로 영의 세계에서 <자기 영>이 간다.
11. 사람이 얼마든지 잘하려면 잘할 수 있다.
12. 목적을 정해 놓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힘들어도 자꾸 목적을 이루려는 희망으로 행해진다.
13. 만들기에 달렸다. 그런데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문제다.
14.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믿어야, 기뻐서 스스로 영광을 돌리며 산다. 그래야 육 평생 최고 차원으로 살게 된다. 그리함으로 영도 최고 차원으로 변화되고, 영원히 최고 차원에서 살게 된다.
15. 잘했는데도 '제때' 안 하니, 효과가 적다.
16. 못했는데도 '제때' 하니, 효과가 크다.
17. 배고팠을 때 먹어야,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맛있다.
18. 배고픈 때가 지나고 먹으면, 진수성찬이라도 맛없다.
19. 조금 덜 갖췄어도 '제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참고 : <꽃 축제>도 꽃이 안 피었어도 '때'를 따라 한다. 올해는 <꽃 축제>보다 <환경 축제>다.
20. 목적인 것을 이루고 만들어야, 조금 부족해도 효과가 크다.
21. 더 잘 만들었어도 목적인 대로 만들지 않으면, 효과가 적다.
22. 그 위치의 그 형상과 모양이다.
23. 좁은 곳은 좁게, 넓은 곳은 넓게다. (폭포수)
24. 그 지역 형상에 따라 개발하고 만들기다.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시간만 지킨다고 성공한다 할 수 없다. <그 시간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성공한 것이다.

2. 항상 두 가지, 세 가지를 성공해야 된다.
3. 제시간 잡기, 제시간에 실천하기, 제대로 잘하기다.
4. 시간도 지키고 실천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최상급 - 중급 - 하급> 순위가 결정된다.
5. 시간을 지키려면, 빨리 뛰고 실천하기다. 실천하려면, 평소에 생활이 숙달되어 있어야 된다. 잘 실천하려면, 전능자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 그 생각으로 구상하고 그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실천하기다.
6. <하나님의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고 '택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속'에 존재하니, 전체에 비해 '적은 무리 속'에 존재한다.
7. <참>은 전체에 비해 적다.
8. <최고 좋은 것>은 항상 전체에 비해 적은 것이다.
9. (초안) 피라미드 구조처럼 항상 하위층이 상위층보다 넓고 많다. <최고자>는 높은 곳에 있되, 그 대신 '면적'도 좁고 '수'도 적다.
10. 많은 날짐승에 비해 '독수리'는 수가 적다. 많은 동물에 비해 '치타'나 '호랑이'는 수가 적다. 하나님이 택하여 새 역사를 펴는 데도 그러하다.
11. 월명동에 돌들이 많아도 '큰 것'은 수가 적고 '최고로 큰 것'은 결국 하나뿐이다.
12. 월명동에 나무들이 많아도 '사연이 있는 소나무'는 수가 적다. 그중의 '최고 크고 사연 있는 소나무'는 결국 두 그루다.
13.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면,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의 수'는 전체에 비해 적다. 그러나 과거보다 '최고 위치'에서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역사'를 펴고 '하나님께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14.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항상 <과거의 것>은 '현재'를 위해 존재해 왔고, <현재의 것>은 '미래'를 위해 존재해 간다. 고로 개인형, 가정형, 민족형, 세계형 모두 <과거 역사>는 '미래의 역사'를 향해, '더 좋은 세계'를 향해 간다.
15. 어제보다 오늘이 더 차원 높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차원 높다. <시간>도 그러하고, <때>도 그러하고, <삶>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16. <시간과 때>는 어제보다 오늘이 차원 높고, 오늘보다 내일이 차원 높다. 그러나 <오늘, 혹은 내일의 생각과 행위의 차원>이 과거보다 낮으면, 과거에 해 놓은 것보다 못하게 된다. 고로 '발달된 현대인들이 해 놓은 것'이 '옛날 1000년 전에 해 놓은 것'보다 못하기도 하다.
17. <과거>를 보고 그보다는 더 잘해야, <현재>가 더 차원 높게 된다.
18.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배우고 <미래>를 배우는 것이다.
19. <과거>대로 하면, 시대가 발달됐어도 '과거 수준의 삶'이 된다. 시대가 발달됐으니 과거보다 더 잘해라.
20. <과거>보다 더 차원 높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잘하지 않으면, 과거보다 더 차원이 낮고 멋있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

21. 운동선수들이 과거에는 최고 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서 최고가 됐는데, 현재는 그 기록에 못 미치기도 한다. 신앙도 그러하다. 과거같이 안 해서다. 생각이 높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다.

22. 과거만큼 하고 더 해야, 과거보다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른다.

23.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 되고, <최고>로 하면 ‘최고’로 된다.

24. <최고로 하는 자의 생각과 구상>을 따라서 하지 않고서는 ‘더 나은 최고’가 될 수 없다.

<2017년 4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25.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 중의 최고의 것>은 ‘최고의 조건을 세운 자’에게 주신다.

26.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최고의 조건을 세운 자>에게 ‘최고의 것’을 줘야 공의롭고, 하나님도 항상 기쁘시기 때문이다.

27.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최고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살게 해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자>를 택하여, 그를 통해 이 세상에 ‘최고의 뜻’을 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 행한 자들>을 지상에서도 ‘최고의 존재’로 대하시고, 영의 세계에서도 ‘최고의 존재 세계, 황금성’을 주시고, ‘최고 급 사랑의 대상자’가 되게 하신다.

28. <최고자>는 ‘최고자’를 만나서 그를 따라 살게 하신다.

29. 하나님은 ‘최고 위치, 월명동’을 주시고, ‘최고로 개발하도록 구상’을 주셨다. 결국 그 구상대로 하여 ‘최고 작품’이 되었다.

30. 주인은 <최고의 것>을 ‘최고의 위치’에 둔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31.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사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며 대하신다.

32. 하나님은 섭리역사에 ‘최고의 사명자’를 보내시고, ‘최고의 말씀’을 주시고, ‘최고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의 세계 최고의 황금성 천국’을 주셨다. 그리고 <더 최고의 것>을 얻게 하려고 ‘더 차원 높은 휴거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33.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 이치를 깨달아라.

34. 하나님은 ‘그 환경과 처지에 맞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

35.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줘어도 ‘내용’을 모르면, 최고인지 모른다.

36. 월명동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위치와 환경’인지 몰랐다. 최고로 수고하여 개발해 놓고 보니 ‘최고의 장소’였다.

37. <최고의 것>을 받으려면 최고로 노력하여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최고로 행해야 된다.

38.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 최고로 시대 조건을 세운 사람들이다.

39. <최고의 작품>은 ‘최고의 금액을 지불한 자’가 주인이 된다. 이와 같이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는 ‘최고로 시대 조건을 세운 사람들의 것’이 된다.

40. <최고의 것>은 자기가 그만큼 값을 지불했기에 자기만 안다.
41. <최고 귀한 것>은 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42. <최고의 것>은 최고로 준비하고 고생하고 땀 흘려야 얻게 된다.
43. <치타>를 잡으려면, '치타보다 더 빠른 동물'이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상의 동물 중에는 치타보다 더 빠른 동물이 없다. 고로 '공중의 독수리'가 순간 날아가서 잡아야 된다.
44. <최고의 것>은 '최고자'가 받아야 최고로 쓴다.
45.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쥐고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신다.
46.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받았어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47. 최고의 존재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 사람의 삼위 일체'가 되어 주신다.
48. 하나님은 <최고의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신다.
49. 성령님은 <최고자>에게 '최고로 역사'하신다.
50. 최고 시간, 최고 기도, 최고 말씀이다.
51. <그 면의 최고의 것>은 '그 면의 최고자'가 보고 느낀다.
52. 차원대로 보이고 들린다.
53. <용의 머리>는 '용의 몸'이 차지하듯이, <주>는 '주와 일체 된 자'가 차지하여 주와 한 몸 되어 '시대 하나님의 최고 목적, 휴거의 역사'를 이룬다.
54. <하나님의 최고 목적>은 과정을 거쳐서 '끝 날'에 이룬다.
55. <모든 면의 최고 자리와 최고의 것들>은 극적인 코스를 거쳐서 만들어진다. 고로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56. <최고로 큰 자>는 최고로 많이 희생하고, 최고로 많이 일을 해야 된다.
57. <최고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더 이상 없이 최고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

<2017년 5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에서 잊어버린 시간>은 순간 간다.
2. <무의식중의 시간>은 순간 간다.
3. <기억을 안 한 시간>은 순간 간다.
4. 모르면, 한 세월이 가는지도 모른다.

5. 잠잘 때는 시간이 가는지, 세월이 가는지 모른다.
6. 알아야, 시간이 가는지 안다.
7. <시간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시간의 사슬에 묶여 사는 자’다.
8. <시간의 속도에 따라 사는 자>는 ‘시간을 다스리며 사는 자유로운 자’다.
9. <겪어 보지 않은 자>는 ‘모르는 자’와 같다. 고로 겪어 보지 않으면 무의식 가운데 시간이 가니, 고통을 받는지 영광을 누리는지도 모른다.
10. <음식>은 ‘먹는 맛’이고, <인생>은 ‘살면서 아는 맛’이다.
11. <시간>에 대해 모르면 ‘시간의 맛’도 모른다.
12.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할 일을 뺏기지 않고,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일하는 맛’이다.
13. <시간>은 ‘잘 사용하는 맛’이다.
14. <시간>을 귀히 보고 사랑해야 ‘시간’과 일체 되어 동행한다.
15. 그릇에 해당되는 것을 담듯이, ‘그 시간에 해당되는 할 일을 담기’다.
16. <시간의 톱니바퀴>다. ‘그 시간에 해당되는 할 일을 넣고 시간을 맞춰 돌리기’다.
17. 어느 때는 ‘1분’(을) 가지고도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대성공을 하고, 어느 때는 ‘5분’을 잘못 써서 죽기도 하고, 혈기와 분노를 못 참아서 욕의 고통을 받기도 한다.
18. ‘시간 잘 쓰기’는 어디에 있겠느냐. <뇌>에 있다. <생각>에 있다. <차원 높은 영의 생각>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있다.
19. <인간 생각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느냐. 이 차이는 안되느냐, 잘되느냐 차이뿐이 아니다. 그 차이가 너무도 크고 넓고 깊다. (나머지 잠언은 이번 주에 꼭 이어서)

<2017년 5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20.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로 하면, 되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땅과 하늘 같아 비교가 안 된다.
21. 자연성전 월명동을 개발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좋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처음에는 <최고의 내 구상>으로 했다. <내 구상>은 산기슭에는 콘크리트로 계단식 스탠드를 만들어서 청중을 앉게 하고, 성황당 안쪽에 호수를 만들고, 운동장을 최대한 크게 하려고 했다. 주위에는 과일나무와 꽃을 심어서 때가 되면 과일도 따 먹고 꽃놀이도 하려고 구상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나의 육적인 구상’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생각대로 그리하면 보기 싫어서 어떻게 쓰냐. 내 구상대로 해라.” 하시며, <현재 야심작 형상>과 <자연성전의 모양>을 보여주셨다. 그대로 100% 만들었다. <내 구상>과 <하나님의 구상>은 비교가 안 된다. 만사의 모든 것도 그러하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이다.

22. <주의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항상 차이가 있다. 너희가 ‘주’를 위해 최고로 한다 해도 <주의 생각>과는 상상도 못 하는 차이가 있다. 고로 매일 ‘주’께 묻고 하여라.
23.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이다. ‘삶과 죽음’의 차이이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차이이다.
24. 사람끼리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고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해도 ‘차원’과 ‘의견’의 차이로 인간은 하나님과 잘 안 통한다. ‘의견’이 같으면 통한다.
25. 사람이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통한다.
26. 사람이 ‘육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 그러면 차원이 낮아도 그런대로 아쉽게 뜻을 펴 나가는 한다.
27.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적’으로 해야, 아쉬움 없이 ‘근본의 목적과 뜻’을 펴 나간다.
28. 사람은 <육>이라서 ‘육의 생각’으로 행하게 된다. <영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생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29. 사람이 ‘자기 차원의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주 무시하지는 않으신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 이끌며 행하신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근본의 목적과 뜻’은 펴기 힘들다.
30.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 휴거>나 <근본적인 것들>은 절대 ‘영적으로 하는 자’를 중심해서 역사를 펴 나가신다.
31. 가령 한 임금이 있는데, 백성들이 임금을 생각하고 임금을 위해 선물을 샀다 하자. 임금의 생각대로 안 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샀어도, 임금은 그 선물을 받기는 한다. 그 차원대로 대해 준다. 그러나 ‘임금의 생각대로 선물을 사온 자의 것’을 중심으로, 그것을 더 크게 쓴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신다.
32. 혹여 자연성전 월명동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못 하고 <내 생각>대로 육적으로 했어도, 하나님이 쓰시기는 한다. 그러나 얼마나 보기 싫겠느냐. 얼마나 불편하게 쓰시겠느냐. <하나님의 구상과 생각>대로만 ‘영적’으로 만들어서 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휴거의 역사도 거기서 이루어 잔치했다.
33.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실천>하기다.
34. 섭리사도 항상 ‘영적인 자’를 중심으로 한다.
35. <육적인 자>는 ‘육적’으로 해 놓고서, 하나님과 주를 생각하고 했으니 영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적인 자>가 ‘주’와 같이 행하면, 다 드러난다.
36. <하나님의 구상>과 <영적인 것>을 100% 알고 행해라. ◎ 월요일, 화요일 잠언과 이어지는 나머지 잠언은 수요일, 목요일에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5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37. 한 도시에 한 성전이 나와서 사려고 했다. 해당되는 교회도 기도하고 그 성전을 사려고,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서 행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다. 영적이다.” 했다. 그 보고를 받고 선생은 “그 성전이 현재 있는 전세 성전보다 나으니, 사자.” 했다. 진행하면서 기도하며 계속 보는데, 그 성전은 40년 전에 지어서 옛날식이고, 건물의 겉 크기보다 안이 좁아서 실속이 없었다. 그러는 중에 그 성전을 못 사는 쪽으로 상황이 틀어졌고, 다른 성전을 다시

찾았다. 새 건물이었다. 그런데 변두리에 있었다. 멀지만, 그 성전을 사도록 상황이 돌아갔다. 값은 전에 봤던 성전보다 적은데도 새 건물이었고, 크기도 더 크고, 모양도 구조도 예술 작품이었다. <후에 찾은 성전>이 ‘영적’이었다. 성자께서 그 성전을 사게 해 주시어, 이름을 ‘성자교회’라고 했다.

38.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처음에는 상황이 비슷해서 잘 구분하지 못한다. <후의 것>이 더 ‘영적’이다.

39. 처음에는 <육적인 것>이 오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이 온다. 먼저는 <육을 가진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다.

40. 어느 날 꿈에 선생 혼자 성황당 길을 가다가, 길과 붙어 있는 밭에서 ‘흰 돌 두 개’를 캐어서 들고 왔다. 꿈에서 깨고 ‘이 흰 돌 두 개와 연결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흰 돌>은 ‘그리스도 상징의 비밀’이며 ‘그리스도’를 준다는 뜻이었다. <그리스도>는 ‘성전’을 말하기도 한다. 곧 ‘성전’을 준다는 계시였다. 꿈에 보니, 흰 돌 하나는 ‘두부 형상’같이 생겼고, 돌이 작아서 아쉬웠다. 또 다른 흰 돌은 ‘원형’이었다. 이후 한 도시에 한 성전 건물이 나왔는데, ‘두 개의 건물’에 ‘두 가지 형상을 가진 성전’이었다. 한 건물은 ‘교회’로 사용했고, 다른 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교회 건물인데, 두 건물을 쪼개서 사용했다. 가만히 보니, ‘그 성전 두 개의 건물 모양’이 꿈에 본 ‘흰 돌 두 개의 모양’과도 비슷했다. ‘색’도 비슷했다. 그래서 “작아도 이 성전을 사자.” 했다. 그런데 기간 내에 용자가 안 되어서 못 사고 말았다. 그래서 ‘꿈이 깨졌구나.’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꿈에 흰 돌을 받은 것은 ‘티켓’을 받은 것과 같다. 그 티켓은 언제든지 사용하면 된다.” 하셨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축복 티켓>을 받았다. 이것은 <돈>과 같다. 그러니 <다음 성전>을 살 때 써야지.’ 하며 기다렸다. 섭리사 한국이나 세계 각 나라 어디서든지 성전을 사겠다고 보고를 올리면, ‘그중의 한 곳’을 골라서 <축복 티켓>을 쓰기로 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꿈에 주신 흰 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꿈 계시>대로 ‘이 꿈에 해당되는 성전’을 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다 한 도시의 한 교회가 이사를 다니다가, 교인은 100명이지만 전세살이를 벗어나겠다고 하며 ‘여러 건물’을 찾아서 선생에게 보내왔다. 그중의 한 건물이 <꿈에서 본 건물> 같아서 ‘이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작지만, 교인 100명이니까 됐다. 작아도 새 건물을 사자. 작아도 <꿈에서 본 돌>같이 생겨야 된다. 가정집만 해도 <꿈에서 본 두부만 하고 손바닥 같은 건물>을 사야 된다.’ 했다. 결국 <축복의 흰 돌 티켓>을 ‘한 시골 교회’에 쓰기로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합당하신 대로’ 행하신다. ‘사람이 합당한 대로’ 행하지 않으신다. <큰 성전>을 사려면 500명, 1000명씩 전도해야 된다. 왜? <교회>는 ‘옷’과 같기 때문이다. 고로 <성전>은 ‘교회 부흥’에 따라 얻게 된다. 작은 교회가 욕심을 내어 큰 성전을 사면, 운영과 유지를 못 한다.

41. 어느 교회든지 성전을 장만하려면, 교인 전체가 마치 자기 혼자 교회를 장만하듯 온갖 것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도 ‘석막교회’를 세웠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하고, 경제와 온갖 것을 책임지고 하니 됐다.

42. 교회가 성전을 장만하려고 빚을 지면, 교인 전체가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내가 이자 내면서 책임져야지.’ 하면서, 모두가 끝까지 해야 돈이 없어도 모아서 성전을 장만한다.

43. 기성 교회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터전 위에 자기들이 마음을 모으고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다. <축복>은 행한 후에 받는다. 기성 교회를 지을 때 각 사람들이 ‘내가 단독으로 책임지고 해야지.’ 하면서 했다. 모두가 그렇게 했기에, 현재 기성 교회를 그만큼 크게 지은 것이다. 섭리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하니, 계속 전세살이를 살게 된다. 섭리사에서 성전을 마련한 교회들은 ‘내가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했기에 작더라도 샀다. <성전 건축의 역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주를 중심으로,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책임져야 된다. <월명동 자연성전 야심작>도 선생이 책임지고 ‘결코 완성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도 내가 다 해 놓는다!’ 해서, 다섯 번 무너져도 또 돌을 쌓아서 완성했다. <자연성전 전체>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개발했다. 일개 교회가 아니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보고 쓰는 자>도 넘어지고 떨어지고 힘든데, <만드는 자>는 100배, 1000배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아무나 못 만든다. ‘사명자’만 만든다.

44.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전>은 첨단 위치, 첨단 장소, 첨단 작품이다. 이와 같이 섭리세계 한국과 각 나라에도 ‘최고의 작품 성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작품을 아는 자>에게 ‘작품 성전’을 주신다. 또한 <얻을 자>가 ‘얻도록 기도’해야 된다.

45. 섭리사 차원은 성전을 사도, 지어도 '1000명 정도 들어가는 성전'이다. 그런데도 힘들다. <자연성전>은 그보다 수십 배가 크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자연성전>을 보아라. 일반 교회와 비교가 되느냐. 일반 교회는 커도 <자연성전>같이 갖출 수가 없다. 나무, 돌, 물이 있고, 성전 안에 산이 여섯 개다. 폭포도 3개, 수영장도 3개, 산책로는 걸어서 한나절씩 간다. 세계의 그 어떤 성전도 이렇게 크고 갖춘 교회는 없다. 모르고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전 세계를 뒤져 봐도 <자연성전>처럼 침단의 장소에 위치한 교회도 없고, 그렇게 생긴 교회도 없다. 하나님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다 <하나님의 궁>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곳'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거하신다.

46. 개미는 '자기 사는 집들 중에서 큰 것'만 크게 본다. '사람이 사는 건물'은 크게 볼 줄 모른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간도 그러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육'으로 다 측량할 수 없다.

47.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라. 보낸 자와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아라.

48. <육적인 생각>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해도 '영적인 생각 앞에는 어린아이'다. ◎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한 잠언에 이어지는 나머지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다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5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49.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적'으로 풀고 행하면, '육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영적 혜택'은 못 본다.

50.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말'이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육적'으로 풀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51.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행하려면, '육의 그릇된 생각'을 물 쏠듯 쏟아 버리고서 행해라.

52.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안 해서'다. <전도>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는 '육적으로만 해서'다. <주>는 '영적'이니, 주와 일체 되어서 해라. 그러면 '영적'으로 하게 된다.

53. <주와 일체> 되어 <영적>으로 해야 '성령'께서도 자동적으로 역사하신다.

54. <하늘 신부>라도 '육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는 자녀급, 형제급'만도 못하다.

55. 말과 생각만 영적이지 말고, 실제 영적으로 행해야 된다. 2017년은 실천의 해다. 이런 것들을 실천해라!

56. 육적인 자는 영적인 자와 같이 살아도 모른다. <육적인 자>는 '자기중심적인 자들과 인본주의적인 자들'이다. 결국은 영적인 자와 '생각'이 갈리고 '삶'이 갈리고 '하는 것'이 갈리고 '얻는 것'이 갈리게 된다.

57.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이시다. 고로 '영적'으로 해야 '삼위와 일체' 된다. 또한 '삼위와 일체' 돼야 '영적'으로 하게 된다.

58. 육적인 지도자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를 영적으로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손해, 따르는 자 손해다. 주와 일체 되어서 주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해라.

59. <육적인 자>는 기성같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육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늘 구름만 쳐다보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비원리인데 그대로 되겠느냐. <육적인 자>가 이와 같다.

60. <육적인 자>는 '영적인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 비유와 상징으로 각종으로 빗대서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면, '영적'이어야 되고 '주와 일체' 돼야 한다.

61. <영적>으로 행해라. <주와 일체> 돼야 ‘영적’이고 ‘신령’하다.

62.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니, 하나님은 그 사연을 땅에 묻으시고 <목적>을 두고 은밀히 행하여 역사가 살아 흘러 가게 하신다.

63. 섭리사도 그러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해 줘도 가치를 모르니, 주는 그 사연을 땅에 묻고, 누가 몰라도 좋으니 <목적>만 이루며 간다. 그렇게 가치를 알라고 해도 모르고 연구도 안 하니, 그런 자들은 ‘육적’으로 따르게 하고, ‘가치를 아는 자들’을 중심해서 속 잔치 하며 간다.

64. <물>이 나무와 곡식을 위해 ‘땅 위’로 흐르지 않고 ‘땅속’으로 흘러가도, 나무가 크고 과일이 크고 곡식이 커서 다 먹고 산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세상이 섭리사를 알아주면 <섭리라는 역사의 물>이 ‘위’로 흘러서 아름답게 쓰이지만, 세상이 몰라주면 ‘속’으로 흐르며 ‘목적’을 행한다.

6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알아주면 ‘겉으로 흐르는 물’과 같고, 몰라주면 ‘속으로 흐르는 물’과 같다. 이래도 저래도 삼위일체는 ‘목적’을 행하신다.

66. 예수님 때도 그 시대가 몰라주니, 꺾속말로만 역사가 흘러갔다.

67. <주를 믿고 따르고 주와 일체 된 영적인 자들>만 마치 생활 가운데 <물>이 ‘자기 정원’으로 흐르듯 하여, ‘주’를 따라서 귀히 보람 있게 쓰게 된다.

68. 하나님은 <영적인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신다. <육적인 자>는 ‘귀한 것’을 받아도 모른다. 써도 모른다.

69. 음식을 안 보고 먹으면 무슨 맛이냐. 모르고 먹으면 무슨 맛이냐.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모르고 믿고 사랑하고 살면, 안 보고 그 이야기만 듣는 것과 같다.

70. 음식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알고 먹으면, ‘제맛’이 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면 그만큼 ‘믿고 사랑하는 맛’이 나고 ‘능력’이 생긴다.

<2017년 5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잠을 깨고 일하면 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할 일’을 행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2. 해야 할 일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면서 행하면 잡생각이 물러가듯이, ‘할 일’을 하면 ‘사탄’도 개입을 못 하고 물러간다.

3. 사탄은 들개, 또는 불청객과 같아서 대하기에 달려 있다.

4. 사탄은 어둠이다.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 ‘삼위일체의 몸’이 되어 ‘빛의 생활’을 하면, ‘사탄, 어둠’은 물러간다.

5. 사탄이 없어도 자기가 ‘사탄의 행위’를 하면, 자기가 ‘인사탄’이 된다.

6. 자기는 만드는 대로 되고, 행하는 대로 된다.

7.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된 행위>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이 되고, <사탄이나 악인들이나 타락 속에 사는 자들의 행위>를 하면 ‘그들의 몸’같이 된다.

8.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땅이 되듯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같은 몸’이 된다.

9. 땅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 땅’이 되고, 개발하여 <공원>을 만들면 ‘공원 땅’이 되고, <연못>을 만들면 ‘연못 땅’이 된다.

10. 첫째 ‘땅의 위치’가 중하고, 둘째 ‘만들기’가 중하다.

11. 사람도 첫째 ‘어떤 사람이나’가 중하다.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위치와 같다. 둘째 ‘거기에 합당하게 만들기’가 중하다.

12. 만드는 것은 ‘천층만층’이다. ‘차원’대로 만들고 만들어진다.

13. 같은 자료로 집을 짓더라도 ‘수백 가지 차원’으로 짓는다. 같은 돌로 공원을 만들더라도 ‘수십 가지 차원’으로 만든다. 사람도 그러하다.

14. 만들고자 하는 면에서 ‘최고’로 만들어야 ‘최고’가 된다.

15. 월명동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으로 쓰려고 자리 잡아 준 최고의 자리’다. 둘째, ‘그 위치에 맞게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든 최고의 작품’이다.

16. 월명동은 처음에 하나님이 장소를 잡고 보여 주신 대로 만들었으니, ‘최고’로 만들 수 있었다. 하나님이 구상을 주고 보여 주신 대로 100% 만들었으니, ‘최고’로 만들 수 있었다.

17.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위치와 그 길이와 높이를 다 말씀해 주시어 그 위치에 그 구상대로 건축했다. 고로 ‘그 시대에 최고’로 건축할 수 있었다.

18. 월명동 자연성전도 하나님이 보여 주신 그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자연성전에 늘 좌정하시고 말씀하신다.

19.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쓸 때 최고’가 된다.

20. 만들면, 이전보다 100배, 300배, 1000배 달라지고 쓰여진다.

21. 곡식도 땅을 개간하여 심고 가꾸면 100배, 300배, 600배 거둔다.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이리도 크다. 다르다.

22. 과일도 새롭게 접붙여서 가꾸면 수백 배 달라져서 판 세상의 과일이 되듯이, ‘사람’도 ‘환경’도 그러하다.

23. 개발하고 새롭게 해라.

24. <사람>도 <환경>도 과거보다 새롭게 개발하면, ‘수백 배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세상’이 된다.

25.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정한 기간’이 끝나면 ‘새 역사’를 구상하고 행하신다. 과거보다 수백 배 다르게 역사를 펴신다.

26. <새로운 역사>는 옛 시대의 것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아예 새로운 위치에다 다른 세계를 만들어 버리듯, 완전히 달리 하신다.

27. <구약>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데리고 뿔던 ‘종 차원의 역사’이고, <신약>은 구약과는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새롭게 편 역사로서 종 차원과 전혀 다른 ‘자녀 차원의 역사’다. <성약>은 신약과는 다른 시대, 다른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새롭게 역사를 펴는 ‘신부 차원의 역사’다.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펴고 이루신다.

28. <새로운 세계>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29. <구시대>는 ‘결혼하기 전’과 같고, <새로운 시대>는 ‘결혼한 것’과 같다.

30. <구시대>는 ‘개발 전’이고, <새로운 시대>는 ‘개발 후 월명동’이다.

31. <개발하기 전 구시대>는 ‘섭리사 신앙생활을 안 했을 때’와 같고, <새로운 시대>는 ‘섭리사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같다.

32. <구시대>는 ‘잠자는 세계’이고, <새로운 시대>는 ‘잠을 깨고 낮에 행하는 세계’다.

33. <구시대>는 ‘추위와 더위와 가난으로 고생하던 세계’와 같고, <새로운 시대>는 ‘부자가 되고 꿈이 이루어진 세계’와 같다.

34. <구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며 희망으로 살아왔다.

35. <새로운 시대>에 오지 못하고 <새로운 꿈>을 이루지 못한 자는 원한을 품고 살다가 늙어 세상을 떠나간다.

36. <구시대>는 ‘전설을 듣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으러 다니는 시대’라면, <새로운 시대>는 ‘보화를 찾고 누리는 시대’다. 그래서 100배, 1000배 다르다.

37. <구시대>는 ‘결혼을 하려고 사랑하는 애인을 찾으러 다니는 시대’이고, <새로운 시대>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사랑하며 사는 시대’다.

38. <구시대>는 ‘옛집을 벗어나려고 새로운 지역과 새 집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과 같고, <새로운 시대>는 ‘마음에 드는 환경과 경치 좋은 뒷산과 앞산이 있고, 집 앞에 물이 흘러가고, 호수와 수영장도 있고, 잔디밭과 운동장이 있고,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고, 그 밖에 자기가 원하고 희망하던 것들이 다 있는 지역을 찾고 상상도 못 하는 좋은 새 집을 찾아 사는 것’과 같다. 고로 ‘새로운 시대에 온 자들’은 희망이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좋겠느냐.

39. 옛 시대 기성인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찾지 못하면, 상상과 희망으로만 살다가 원한을 품고 슬퍼하며 세상을 떠난다. 새로운 시대를 찾는다면, 마음껏 행하여 얻고 누리다가 <영>이 영원한 ‘영의 세계’로 가지고 가니 얼마나 좋겠느냐. (내일 나머지 잠언으로 이어짐)

<2017년 5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40. 신은 섬세하게 아신다.

41. 무지한 인간도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면, 신같이 알게 된다.

42. 알면 행하게 되니, 얻는다.

4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축복을 주실 때, 알게 해 주신다.

44. <모르는 자가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그 차이는 밤과 낮이다.

45. <아는 자>는 ‘생각’도 ‘행위’도 다르다.

46. <진짜 아는 자>는 ‘새로운 세계’를 찾는다.

47. 새롭게 만드니, 같은 자리에 두 가지가 생겼다.

48. 새롭게 하기 전에는 개울길로 다녔는데, 새롭게 하여 위에는 길을 내고 개울은 파내니 물길이 나오고, 수영도 할 수 있는 천하의 비경이 나왔다. 새롭게 하니 고통스럽게 쓰던 한 장소에 두 가지, 열 가지, 서른 가지까지 작품을 만들어 귀히 쓰게 되었다. (꿈의 계시로 월명동 옛날 길이 보이고, 그다음에 개발 후 지금의 월명동 길이 보였다. 그래서 잠언으로 썼다.)

49. <이상세계>는 새롭게 해야 된다.

50. <새로운 장소를 찾고 새롭게 하는 것>은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다.

51. 인생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곳을 찾아 개발하여 과거의 꿈과 이상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으냐.

52.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새 역사’다. 그 역사를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

53.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벗어나 ‘새로운 이상세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곳이 ‘새로운 땅, 자기들의 고향’이니, 얼마나 좋으냐.

54. 사람도 ‘새 사람’을 전도하면 그리 좋다. ‘새 시대’와 같다. 고로 행해라.

55. <새 시대>를 만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게 된다.

56. <새것>을 얻어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57. <새것>은 새 맛이 나고, 병든 마음도 몸도 낫게 한다.

58. <유토피아, 신세계, 이상세계>를 찾아, 거기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와 같이 살면 육 평생, 영 영원히 얼마나 좋겠느냐.

59.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옛 시대’에서는 ‘옛 섭리’밖에 못 펴신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어 땅에서 준비된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신다.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에서다.

60. <새 시대>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구시대에 숨겼던 말씀이 사실 이것이었다.” 하시고, 속도 겹도 시원하도록 역사 하며 행하신다.

61. 사람도 <말할 대상>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얼마나 좋으냐. 삼위일체도 그러하시다. 겪은 자만 안다.

6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목적을 다 이루어 주고, 삼위의 대화 상대가 되어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게 해 주고 사랑해 주면, 삼위일체는 ‘하늘과 땅에 숨겨 뒀던 보물, 새 시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신다.

63. <삼위를 극으로 사랑해 주는 자>를 삼위도 극으로 사랑해 주시고, 극으로 최고의 장소를 주시고, 그곳을 최고로 개발하도록 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삼위가 원하는 대로 쓰신다.

64.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현실 역사’ 후에 ‘후대를 위한 역사’를 계속 실행하신다.
65. <세상의 각종 희소식>도 크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는 새로운 시대 희소식>이 최고로 크다.
66.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근본의 기쁨’이 없다.
67.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역사가 7000년째에 해당되는 시대에 1000년 동안’ 행하여 이루신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하고 7000년째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시대에 예비하신 자’를 통해 시작해서 목적을 이루신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보고 누리신 것과 같다. 이것이 ‘새 역사’다.
68. 6일 창조가 끝나고 7일째 되는 날 쉬고 누리셨듯, 신구약 6000년 과정의 역사가 끝나고 7000년째에 해당되는 때부터는 ‘1000년 동안 보고 누리고 쉬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새 역사’다. 이때 <휴거>를 이루어, 비로소 ‘진정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 시대가 열리고, 1000년 동안 ‘사랑의 역사, 혼인 잔치’가 진행된다.

<2017년 5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환경>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 꽃 축제
2. 때가 됐으니 <하늘 축제>를 한다.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화목, 생명 전도’다. - 꽃 축제
3. <사랑>에는 ‘환경’이 안 보인다. 오직 ‘사랑’만 보인다.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면, 때를 따라 행해라.
4. 사랑을 안 하고 해를 넘기면, 그 센터는 다 못 하게 된다.
5. <환경>은 가다가 갖춰도 되지만, <핵>은 때가 가면 못 한다.
6. <환경>이 갖춰졌어도 <핵>을 못 하면 ‘실패’이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핵>을 하면 ‘성공’이다.
7.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성공’이다.
8.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못 한 것>이 ‘죄’다.
9. <경계선의 맛>이다.
10. <경계선>에서 살면, ‘자체 맛’과 ‘상대 맛’ 두 가지를 누린다.
11. (화면) <강과 육지가 서로 닿는 경계선>에서 살면, ‘강의 아름다운 맛’도 누리고 ‘육지의 아름다운 맛’도 누린다.
12. <산 밑의 평지와 산의 경계선>에서 살면 ‘평지의 맛’과 ‘산의 맛’ 두 가지 환경의 맛을 다 누린다. 이것을 ‘경계선의 맛’이라 한다. 경계선에서 멀면, 자기 위치에서 ‘한 가지’만 보고 누린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가까이 붙어서 살면, ‘자기 삶의 맛과 보람’도 누리고, ‘전능하신 삼위를 대하는 맛, 사랑의 맛, 말씀의 맛, 영의 맛과 이상’도 누리며 보람 있게 산다.

<2017년 5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의 계시는 <반복하는 계시> 같지만, 실상은 <차원 높이는 계시>다.

2.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지키라고,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이해하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3. 만일 반복해서 말해 주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못 하기도 하지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감동과 힘’이 약해서 못 지키게 되고, 신앙의 하락세를 타서 차원이 낮아진다.
4. <반복하는 말>은 “진실로 해라. 정말로 해라.” 하며, ‘차원 높은 말’과 같다.
5. 꿈도 <반복되는 꿈>은 ‘강조하는 꿈’이다. 진실로 그리 된다 함이다.
6. <반복되는 계시나 꿈>은 선악 간에 강조하며 “꼭 그리 된다. 해라. 하지 말아라. 피해라.” 함이다.
7. 설교 말씀이나, 계시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나 그 말이 그 말같이 반복된다고 건성으로 읽거나 듣지 말아라. 그 말이 그 말 같아도 실상은 <더 차원 높은 말씀>이다. 자꾸 깊이 읽고 들어라.
8.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안 읽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메시아의 말씀을 안 읽는 자들’이다.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9. 설교 말씀이나 계시 말씀이 반복하듯 해도 ‘전보다 차원 높은 말씀과 계시’다. <기본 계시>는 같지만 ‘핵’은 다르다.
10. <계시를 못 받는 자>는 자꾸 ‘계시’를 읽어라.
11. <말씀>을 못 받으니,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새겨라. 그리고 행해라.
12.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어도 자꾸 읽으면 변화되고, 결국 실천하여 얻게 된다.
13. 설교 말씀이나, 잠언이나, 계시 글이나, 노래나 비슷해 보여도 모두 <실천>해야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알게 된다. 전의 것과 ‘기본’은 같아도 ‘핵’은 다르다. 말씀이나 계시는 ‘적어도 세 번에서 일곱 번까지는 읽어봐야’ 내용을 알게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내용이 깨달아진다. 그리고 ‘행해야’ 왜 그런 말씀이나 계시가 나왔는지 알고 실천하여, 때가 되면 얻는다.
14. 새벽에 씻고 기도하고, 검토해 달라고 온 계시들을 봤다. ‘무슨 계시인가?’ 하고 몇 줄 읽는데, 계시 말씀에 늘 나온 단어들이었다. 이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의 것과 <내용>은 비슷해도 <차원>은 다르다.”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같은 계시라도 앞의 것은 <해라.> 했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니 다음에는 <꼭 해.> 하며 독촉한다. 고로 다르다. 계시가 비슷하다며 보통으로 읽지 말고, 자기가 계시를 받듯이 읽고 깊이 보아라.” 하셨다. 그리고 <계시에 관한 잠언의 계시>를 새벽 잠언으로 주셨다.
15. 어제 본 것을 오늘 또 보면, ‘보는 차원’이 다르다.
16.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지만, 더 ‘차원’이 높다.
17. <계시>도 비슷하지만, 앞의 것보다 다음의 것을 더 차원 높여 주신다. 그래야 감동과 힘을 받아 실천하고, 그래야 높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18.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이 실천하나 안 하나, 가면서 ‘차원’이 높아진다. 고로 ‘그에 해당되는 계시’도 차원 높여 주신다. 그 중에 ‘실천자’가 있기 때문이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일을 밀렸다가 하는 격’이 되어 많이 실천해야만 따라간다.

20. <게시>가 많으니, 읽기만 한다. 하나라도 좋으니, 실천해라! 하나라도 ‘실천’해야 ‘유익’이다.

21. <게시>가 많으니 귀히 안 보느냐. <게시를 받은 자의 책임>이 크니, 자꾸 전해 주어라. 기회와 장소가 있는 대로 전해 주어라. 전체가 보고 읽도록 자꾸 올려 주어라. - 성령과 주의 말씀이다.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예전에는 예뻐다. 그런데 지금은 안 예쁘다. 사람들은 안 예쁘다고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와는 예쁘게 본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 사람이니, 또 단장하면 예뻐지기 때문이다. / 신앙도 전에는 잘하는 자였는데 지금은 못하고 안 좋아도 좋은 자로 본다. 이는 <근본>이 ‘ 좋게 할 수 있는 자격자’이기 때문이다. / 처음에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는 자라면, 잘할 때까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잘하면 즉시 달라진다.” 하셨다.

2. 누구든지 ‘예전에 잘했던 자’라면, 지금은 못해도 다시 하면 잘할 수 있다. ‘좋은 감정과 희망을 가진 자’다.

3. 가령 나무가 있다 하자. 전에는 아주 멋있어서 사 왔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다. 그 나무가 그 나무라면, 이미 ‘멋지고 아름다운 골격’이 갖춰져 있으니 다시 관리하면 된다. - 사람도 이와 같다.

4. 젊었을 때 아름답고 멋있어서 좋아했다 하자. 그런데 나이가 드니 변하여 젊었을 때만 못하다 하자. 전보다 못하다고 기쁨과 희망도 사라진다고 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

5. 예전에 좋아하던 자가 나이가 들어 그때의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없어졌다 하자. 그 사람이 더 좋으냐, 아니면 자기도 같이 나이 들었으면서, 그 나이에 다른 자가 더 좋으냐?

6. 전도하다가 오랜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자기가 기른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이 다시 와야 애타는 마음이 풀리고 희망이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이 와도 소원이 안 풀린다. 만일 자기가 마음을 바꿔서 ‘더 좋은 사람’을 다시 전도하겠다고 결정하고 희망하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와야 자기 소원이 풀리고 희망이 이루어진다. ‘전의 사람’이 다시 와도 소원이 안 풀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마음을 바꾸어서 ‘더 좋은 사람’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을 찾아 소원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좇대’가 자기에게서 옮겨지지 않도록 늘 간구하여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마음이 바뀌면, 바꾼 대로 소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바뀌서 역사하신다.

7. <하나님과 성령께서 본래 너를 향해 계획하신 뜻>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여라. 네가 변질되면,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여 ‘다른 사람’으로 좇대를 옮기신다.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뜻을 이뤄야 만족하신다. 그때는 본인이 해도 하나님의 기쁨과 희망을 못 이루니, 그냥 하나의 희망 거리로만 보신다.

8. 한 생명이 기대에 어긋나게 하고 타락함으로 자기 갈 길을 가 버렸다. 성자께 간구하니 말씀하시기를 “속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하시며, 실제로 ‘폭 썩은 복숭아’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폭 썩은 복숭아가 다시 새 복숭아가 되겠느냐.” 하셨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고 간구했다. 어느 날 ‘예전에 관리했던 한 생명’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이 나간 자를 대신하는 자’임이 깨달아졌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새로 전도된 자’가 아니라 ‘예전에 전도되어서 크고 있던 자’였다. 또 알고 보니 어릴 때는 힘들어서 교회에 잘 못 나오던 자였는데, ‘자주 편지해서 나오라고 했던 자’였다. 섭리사를 뛰다가 ‘환난’으로 섭리사를 나가거나 ‘자기 책임’을 못 해서 섭리사를 나가는 자들을 대신하기 위해 ‘새로운 자’를 다시 전도해 오기도 하지만, ‘이미 섭리사에 온 자’를 예비해서 키우고 계시기도 한다. <섭리사를 나간 자>나 <섭리사에 있어도 제대로 안 하는 자>는 주가 시킨 일을 끝내 안 했는데, <새로 온 자>나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서 키우고 새롭게 뽑은 자>는 즉시 그 일을 하여 완성했다. 일을 시켰는데 안 하면, 사명이 바뀐다.

9. 가령 ‘전에 온 자’가 섭리사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그가 못 한 것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시

고, ‘못 한 사람’은 그 차원에서 하게 하신다.

10.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그 소원을 풀어 줄 자’를 부르신다.

11. <신약 때>는 ‘자녀 차원의 뜻을 이룰 예수님’을 보내어, 목적을 이루고 소원을 푸셨다.

12. <신약에서 약속한 새로운 때>에는 ‘신부 역사,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룰 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펴고 목적을 이루셨다.

13. 새 역사에 온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려고 시대에 부른 독수리 같은 개성의 왕들’이다. 금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령으로 행해라.

14. <실제 모양과 형상>보다 <마음과 생각>이다.

15. <실제>보다 <마음과 생각>이다.

16. 음식이 실제로 푸짐하고 맛있어도, 마음이 식으면 맛없다.

17. 음식이 실제로는 보통이어도, 마음과 생각이 흥분되어 좋으면 맛있다.

18.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하실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9.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는 지혜’로 행하신다. 그리고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합당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육신’만 알게 하신다.

20. 사람들이 강물을 막으니, ‘댐’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물이 차고 넘치니 결국 흘러가서 ‘바닷물’이 되었다. 바닷물이 되니 누구도 막지 못했다. 거기서 ‘파도’가 되어 물결치게 되었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쓰고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지 않은 자들’이 ‘그’를 막는다.

21.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지하여 막으면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시고, ‘다른 길’로 하시고, 육을 막으면 ‘육이 못 보는 영’으로 하시고, 사람을 막으면 ‘만물’을 사역자로 삼고 홍수·가뭄·지진·추위·더위·태풍 등으로 심판하고 행하신다. (설명 : (초안)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못 만나게 하니, 하나님은 서로 반대로 가서 만나게 하는 격이다.)

22.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서게 되어 빛이 난다. <밀들>로 인해 <윗들>이 서게 되어 빛이 난다. <사람>도 이러하고, <역사>도 그러했다. (초안) <신약 자녀권 역사>로 인해 <창조 목적 신부의 역사>가 서게 되고 빛이 나게 되었다.

23. (하나님) <할 일>만 하면 ‘올 것’이 온다.

24. <자기 갈 길> 외에는 ‘다른 많은 길들’이 다 필요 없다.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으로는 늦다. <영>으로 해야 할 수 있다.

2. <육적>으로 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된다.

3. <육>이 하면 못 가는 곳이다. <혼과 영>으로 하면 다 갈 수 있다.

4. <생각>으로 생각하면 갈 수 있으나 <육적>으로 하면 못 가듯이, <육>으로만 하면 못 한다.

5. <영적>으로 생각하면, 갈 길이 다양하다.
6. <육적>으로는 아예 ‘갈 수도 없는 길’이고, 아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하신다. 고로 쉽게 하신다.
8. <자기 휴거된 혼과 영>을 불러서 써라.
9. <육>은 감도 생각도 약하고, 멀어서 보이지도 않는다. <혼과 영의 눈>으로는 거리 제한 없이 다 보인다.
10. <육이 죽었어도 영이 산 자>는 ‘자기 육의 생각’이 ‘자기 영’에게 가서 ‘생각이 산 자’가 된다.
11. <영이 사망권에 죽은 자>는 ‘그 육’이 죽으면, ‘그 마음과 혼’도 ‘사망권의 영’에 속하여 ‘사망권의 생각과 혼’이 된다.
12. <영이 생명권에 살아서 존재>하면, ‘그 육과 생각과 혼’도 ‘생명권’에 속해 있다.
13. <영이 사망권에 있는 자>는 ‘그 육과 생각과 혼’도 ‘사망권’에 속해 있다.
14. <육>은 ‘육적 생각’을 하고, <영>은 항상 ‘영적 생각’을 한다.
15. <육>이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면, ‘영적으로 한 것’이다.
16. 어떤 일을 놓고 <육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수만 단계이듯, <영의 생각>도 그러하다.
17. <낮은 단계의 생각>으로는 안 돼도 <높은 단계의 생각>으로는 된다.
18. <같은 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쓴다. <같은 뇌>를 가지고도 ‘육’으로도 쓰고 ‘영’으로도 쓴다.
19.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영적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육적 생각’이다.
20. <성령의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자기 생각>으로 보면 저렇게 보인다.
21. <아는 자의 방법으로 보는 것>과 <모르는 자의 방법으로 보는 것>이 다르듯, <삼위의 생각으로 보는 것>과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것>은 다르다.
22. 왜 <생각>이 다른가? 보는 위치,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23. <다른 위치>에서 생각하면, 달리 보이고 달리 생각된다.
24. <한 가지만 보고 생각하는 자>와 <전체를 보고 생각하는 자>는 각각 생각이 다르다.
25. 목숨을 걸고 장담한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다. <수준과 차원이 낮은 데>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 목숨 걸고 자기가 본 것이 맞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수준과 차원이 높은 데>서 보면 아니다.
26.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관권의 것’만 보고 맞다고 장담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맞는지 보아라.
27. 저마다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며 확실하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 위치, 자기 수준과 차원’대로 보기 때문이다. <갈

날만큼 조금만 보고 말하는 자>보다 <전체를 보고 말하는 자>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다.

28. 같은 지구를 봐도 <열대지방>에서 보면 '더운 지구'로 보고, <한대지방>에서 보면 '추운 지구'로 본다. <더운 곳도 추운 곳도 다 겪어 본 자>만이 제대로 말한다. 계절에 따라서 봐야 '4계절'이 있다는 것을 안다.

29. 각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 위치와 차원에서 겪은 대로 말하니,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것이 맞다며 다투고 싸우는 것이다. 결국 '단점은 적고 장점이 많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

30. <자기 위치, 자기 입장, 자기 처지의 생각과 삶>대로는 맞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다른 것들이 많다.

31. <자기 위치, 입장, 처지의 생각과 삶>대로는 맞다 해도 <전체>를 보면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 '온전치 못한 것들'은 가다가 눈 녹듯 녹고 끝난다. 고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데'로 가자는 것이다.

32. <판단의 기준>은 '더 무거운 쪽'으로 기운다.

33. 두 사람이 다 옳다 해도 '누구의 판단의 비중이 더 크냐'에 따라서 더 큰 데로 가야 된다.

34. <외나무다리>에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고, <큰 다리>에도 길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장점이 많은 길'로 결정된다.

35. 양쪽 사람의 주장과 생각에는 다 근거가 있다. 그러나 '누구의 근거가 크고 무겁냐'에 따라서 저울추는 기운다.

36. 공의로운 하나님은 저울추나 잣대로 판단하는 선을 넘어, 작아도 가벼워도 '그때 가장 합당한 것'을 택해서 하신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영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37. <그때 그 입장과 처지>를 봐야 된다.

38. 하나님은 '신혼골수'를 살피고 결정하신다.

39. 어떤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했다. 이때 하나님은 <안 한 자>를 선하게 보신다. <한 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혹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40.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버린다.

41. 하나님은 '무언(無言)'으로 하신다. 사람이 그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때가 되면, 인간 스스로 알게 하시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하신다.

42. 어떤 사람이 죽었다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같이 죽게 놔뒀냐며 이해를 못 한다. '하나님이 다른 뜻을 두고 행하셨나?' 하고 막연히 생각한다. 사실, <답>은 '다른 데'에 있다. 인간이 책임을 못 해서 죽은 것이다.

43. 젊은 나이에 선교를 하며 하늘 앞에 충성하던 자가 암으로 죽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하던 자가 미리 암이라는 것을 알게 도우시지, 왜 안 도우셨지? 다른 것들은 엄청나게 도우셨는데...' 한다. 아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시니 건강까지 돕는 줄 알고, 그가 아예 '암'에 대해 인식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암'을 없애 주며 돕지 않으시고 미리 느끼게 하며 도우시고, 자기 몸을 살피고 관리하며 책임 분담을 하게 하면서 도우신다.

44.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아라. 어느 때는 슬쩍 느끼게만 하신다. 그런데 본인이 그 느낌을 무시하여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여 다치거나 죽는 것이다.
45. <인간>이 ‘할 일’을 해야 된다.
46. <주>라도 ‘할 일’을 해야 된다.
47.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된다.
48. 하면 ‘예정’이고, 안 하면 ‘예정된 것’이라도 안 된다.
49. <예정>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된다.
50. 하나를 하면 ‘그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것’도 된다.
51. 하나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로 인해 ‘다른 것’도 안 된다.
52. 누워서라도 하기만 하면 이루어지고, 뛰면서도 안 하면 안 된다.
53. <실천>은 ‘실천’을 낳는다.
54. <행한 자>가 ‘왕’이다.
55. 아무렇게나 행했어도 행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그나마 얻는다.
56. 바닷물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실 가닥 같은 물줄기를 가지고 행한 것’만 못하다.
57. 환경이 좋아도 행하지 않으면 ‘빈손’이다.
58. 무(無)에서라도 실천해라.
59. <실천하는 습관>은 때마다 얻게 한다.
60. <실천>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한한 것들’이 솟아난다.
61. <많이 실천>했더니, 그중에 ‘보화’도 있었다.
62. <매일 실천>해야 ‘실천의 기술’이 늘어서 ‘못 하는 것’도 하게 된다.
63. 실천하지 않으면 ‘실천의 기술’이 줄어들어서 ‘실천할 것’이 안 보인다.
64. 실천하지 않는 자는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있다. 이때는 ‘다른 자의 힘’이 필요하다. <실천자>가 ‘실천하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자’를 이끌어 내라. 구해라.
65. 기름이 떨어졌기에 차가 가다가 멈춘 것이다. 이때 이끌어 오거나 기름을 넣어 주면 다시 달린다.
66. 긍휼, 자비, 사랑이다.
67. 숨 쉬면 존재한다. 그것까지 안 하면 끝난다.

68. 숨 쉬면 1%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 가능하면 100% 가능하다.

69. <하는 자>는 1%를 가지고 100%를 한다. <안 하는 자>는 99%를 가지고도 안 하여, 100% 생명의 세계로 못 넘어가고 있다.

70. <온몸>이 쳐다보고 <한 손>으로만 해도 존재한다.

71. 이유 여하를 따지지 않고, 안 하면 안 된다.

<2017년 5월 13일 토요일 새벽 잠언>

72. 빨아도 먹어도, 먹지는 못한다. (답 : 나무 퇴비 / 담배, 이성)

73. 말귀를 알아들어라. 따먹었다 하니, 입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느냐. 그러니 수천 년이 지나도 못 풀고, 평생 가도 못 푼다. 남녀가 사랑으로 취한 것도 따먹은 것이다.

74. 나무가 사람같이 퇴비를 안 먹고 흡수했어도 먹은 것이다. 성경도 그런 식으로 써서, 성적 타락을 따먹은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75. 사랑의 행위를 <몸>으로 안 하고 <생각>으로만 해도 ‘한 것’이다. <생각>으로만 해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76. <손>으로 안 때리고 <말>로 때려도, 상대가 그 영향을 받아 고통을 받고 해를 받는다. 고로 ‘죄’가 되어 ‘심판’을 받는다.

77. <몸>이 수천 리 떨어져 있어도 <말>로 때릴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죽기도 하고, 지옥 고통도 받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생각한 것, 말한 것,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 다 보시고, 선악 간에 ‘죄’나 ‘의’로 보고 ‘그 행위’대로 대하신다.

78.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도 내게 잘못된 자를 용서해 줄 테니, 나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다 살지.” 하셨다.

79. <죄의 형벌>은 ‘하나님이 때려서 주는 것’이 아니다. <자기 행위>로 인해 ‘자기가 그 환경에서 스스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80. 가령 <청소를 안 한 것>이 ‘죄’라 하자. 청소 안 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자. 그래도 청소하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벌레한테 물리고, 청소하지 않아서 더러운 것은 ‘본인이 안 해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냄새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럽게 하신 것도 아니다. 모든 죄의 형벌도 그러하다. 자기 행위로 인해 자기가 그 환경에서 스스로 형벌을 받게 된다.

81. 모두 장마에 대비하라 했다 하자. 그런데 안 했다. 장마가 지니 집에 비가 새고, 물건이 떠내려갔다. 안 한 것을 회개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그런데도 고통이 왔다. 왜일까? 하나님이 때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준 것도 아니다. 집을 고치지 않으니 집에 물이 새서 추운 것이고, 각종 물건들이 떠내려가서 먹을 것이 없고 잠을 못 자는 것이다. 그것이 곧 ‘자기가 안 한 것으로 인한 고통’이다. <본인>이 안 해서 ‘형벌과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이 고통을 준 것이 아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서 집을 고치고, 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진 것들을 다시 사 와라. 옆에서 형제들이 돕고 함께해 주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만, 결국 ‘본인’도 같이 해야 된다.

82. <본인>이 ‘몰라서’ 지옥에 가고, ‘천국 가는 행위를 안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83.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결국 ‘구원받을 자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형벌>이 좌우되고, <천국과

지옥>이 좌우된다.

84. <자기가 살릴 자>인데 못 살리면, <다른 자>를 통해 살리신다.

85. 저마다 <보는 관>이 다르니, 혼자서 다 못 보고 다 못 한다. 고로 ‘그 일을 맡긴 자’만 믿고, ‘그’에게만 기대하지 말아라.

86. <전문가>라도 때에 따라서 몰라서 못 보는 것이 있다.

87. <남>은 구원해 놓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느냐.

88.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간 의사 선교사가 수백 명을 치료해서 고통을 없애 주고, 죽을 자도 살리고, 신앙도 넣어 줘서 구원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본인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죽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 한 것이다. 자기가 그토록 많은 자들을 돕고 살렸으니,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자기를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의사이니 자기를 진찰해 보고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러나 본인도 관리를 해야 된다.

89.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되겠느냐. 100% 자기가 관리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자기 몸을 관리하신다고 생각해야 된다.

90. 어제 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없었어도, 오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육의 건강관리>도 그러하고, <생명 관리>도 그러하다.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 맡기면 왜 잘되는지 깨닫는 자만, 좋아서 절대 맡긴다.

2.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자>는 가뭄에 비가 안 오니, 많은 돈을 들여 인력을 동원해서 농장의 곡식과 산의 나무에 물을 줬다. <하나님께 맡긴 자>는 돈을 들이지 않고 간구했다. 이튿날 비가 왔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과 맡긴 것은 이와 같다.

3. 물론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기 책임 분담도 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도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4. 주께 맡기고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주께 맡긴다고 해 놓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 주는 맡기지 않은 연고로 그냥 놔두고, 그로 인해 본인은 필요도 없는데 천 리 길을 왕복하게 된다.

5. <주의 일>이니 ‘주’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자기 일>도 ‘하나님과 주와 연관된 일’이니, 맡겨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과 주께 맡기고, 그 생각에 따라서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6. <바윗길>을 가다가 갑자기 길이 좁아져서 <바위 구멍>이 나왔다. 그곳은 ‘바위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야 할 코스’다. 그런데 어떤 자는 그 구멍 코스를 크게 뚫어 버린다. 이는 ‘작품을 깨부수는 것’이다. <대둔산 용문굴 좁은 바위 구멍>같이 그냥 놔두고 생긴 대로 자연적으로 써야 ‘자연의 걸작’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고칠 것>이 있지만 <개성대로 쓸 것>도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인생의 생각과 행위의 작품’을 깨부순다. 자연의 바윗길이 ‘넓은 곳도 작품’이고 ‘좁은 곳도 작품’이듯이, 인생도 ‘개성대로 작품’이다.

7. 인생은 <개성의 작품>이니, ‘개성의 인생 작품’을 버리지 말고 ‘개성’대로 귀히 쓰여라.

8. 하나님은 <마음이 큰 자>는 ‘큰 데’ 쓰시고, <마음이 작은 자>는 ‘작은 데’ 쓰신다.
9. <대문을 만드는 자>는 ‘대문 만드는 데’ 쓰시고, <방문을 만드는 자>는 ‘방문 만드는 데’ 쓰시고, <창문을 만드는 자>는 ‘창문 만드는 데’ 쓰신다.
10. <팔찌>를 만들듯 <귀고리>를 만들면, ‘귓볼의 귀고리 구멍’이 찢어져서 못 쓴다. 개성대로 거기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11. 인생, 개성대로 개발하고 가르쳐 주고 써라.
12. <상, 중, 하 생각과 행실의 인생들>이다. 각 사람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자기는 모른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같이 만들면 절대 안 된다. 먼저 ‘하나님께 구상’을 받고 만들어서 써야 된다.
13. 월명동같이 크게, 작게, 가늘게, 넓적하게, 뽕족하게 각각 개성대로 살살 손대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제2의 창조를 하는 것이다. 원래 <잔디성전>은 물 수령 받아있다. 그 부분만 해결하고, 경사는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잔디를 입혀 ‘잔디성전’으로 만들었다. <잔디성전>을 운동장같이 ‘평지’로 만들어서 그 위에 잔디를 입혔으면, 얼마나 보기가 싫고 눈엣가시가 났겠느냐. <잔디성전>은 경사가 진 대로, 개성대로 ‘앉는 장소’로 만들어서 잘 보이고 잘 들릴 뿐 아니라, 겨울에는 경사가 졌으니 눈이 쌓이면 썰매도 타고 스키도 탈 수 있다. <들어간 곳>은 개성대로 ‘폭포’와 ‘수영장’으로 만들었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지형과 위치>에 따라서 ‘개성’대로 구상하고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14. <지형과 위치>에 맞춰 개발하지 못하면 ‘최고 작품’을 다 버리게 된다. 산을 다 깎아 버리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 좋은 나무들과 자연의 돌과 바위들을 다 없애고, 나무 정원으로 만든다고 다시 나무를 사다가 심고, 다시 돌을 사다가 조경을 한다. 고로 일생 동안 ‘본래의 자연환경’을 못 보고 죽는다.
15. <하나님의 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백 년 된 나무’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물’도 그대로 흐르게 두고, ‘자연의 돌과 바위들’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집’을 짓고 <환경 천국>을 누리며 산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수십조를 들여 <4대 강>을 막아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없애고, 결국 강은 썩고 녹조 현상으로 녹색 물이 되었다. 그러고는 만든 자들이 나 몰라라 한다. (한국 상황) 미련한 자들은 만들어 놓고 후회하고, 그 자손들은 볼 때마다 쓸 때마다 지옥 고생을 한다.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었으면, 절대 그같이 안 만든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16. 이 같은 잘못을 하나님께 고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도 그같이 썩어서 살 것이다.” 하셨다.
17.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어야 평생 후회하지 않고 볼 때마다 쓸 때마다 자랑하며 귀히 쓰인다.
18. 지도자들도 교인들과 생명들을 <자기 식, 자기 성품, 자기 구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주 생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만들어라.
19. 지도자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잘못 시키고 사명을 잘못 주면, 결국 너도 나도 고생하고 힘들고 망하게 된다. 결국 그 문제가 ‘책임자’에게 가게 된다.
20. 공부해서 하나님께 쓰여질 자가 있다. 취직할 자가 있다. 말씀을 외치고 살 자가 있다. 사업할 자가 있다. 각 지체가 생긴 대로 쓰이듯이, 사람들도 ‘개성대로’ 써라.
21. <그 사람의 개성>이 아니면 해도 안 되고, 시켜도 안 된다.
22. 100%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가르쳐 주고 인도해라.
23. 저마다 ‘하나님의 구상’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24.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개발해라. <표상으로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한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자기를 개발하고 행하며 살기다.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25. 오직 하나님의 구상대로다. 하나님의 뜻대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다.

26.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닌데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 자기 생각을 전한다. ‘때’도 안 맞는데, 억지로 때를 맞춘다. 모두 ‘자기 취미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27.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 나간다.

28. 산과 바위를 다 깨부수고 아파트를 짓고, 금수강산의 4대 강을 다 막아서 썩게 만들고 잘했다 한다.

29. <자연의 골짜기>를 그대로 두니 때마다 ‘물’이 흘러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 말씀의 골짜기>를 그대로 두니 때마다 ‘시대 말씀의 물’이 흘러 내려온다.

30. <샘 자리>를 다 파 없애면 ‘흐르는 물’도 ‘샘’도 없어진다. 그러면 후대는 본래부터 ‘샘’이 없는 줄 안다. <월명동>을 보아라. 샘의 물줄기를 그대로 잡아서 ‘약수 샘’을 만들고, 산의 흐름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잡아서 개발했다. 하나님의 구상이다. 개인 단위, 가정 단위, 민족 단위도 <사람을 만들 때>나 <환경을 만들 때>나 이렇게 만들어라. 그 래야 당세부터 후대까지 미인 보듯 기뻐하며 보고, 진수성찬을 먹듯 맛있게 먹고 즐기며 잔치한다.

31. 미련하게 개발하는 자들은 개인·가정·민족 단위로 <사람을 만들 때>나 <환경을 만들 때>나 ‘콧구멍’이 작다고 ‘입’ 같이 크게 찢어서 개발한다. 고로 ‘인생 작품, 환경 작품’을 버린다.

32. 사람은 각각 ‘삼위를 닮은 개성의 모습’과 ‘자기 부모를 닮은 개성의 모습’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개성’을 벗어나서 성형 수술을 하여, 다 ‘비슷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비슷한 일’을 한다. 특히 돈을 벌려고 목적인 자들이 ‘개성’을 다 무시하고 뜯어 고치라고 한다. <얼굴 개발>을 잘못하여 잘못 손대니, ‘삼위일체를 닮은 개성의 모습’도 없어지고 ‘자기 부모를 닮은 개성의 모습’도 없어졌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을 벗어나 성형 수술을 한 자들은 ‘천연의 얼굴’이 없어졌다. 이는 마치 <천연 동굴>이 있는데 좁다고 다이내마이트를 터트려 ‘터널’같이 만들어 놓고, 차를 타고 다니니 좋다고 하는 미련한 자와 같다. <좁아도 천연 동굴>이 귀하나, <넓게 인위적으로 만든 터널 같은 굴>이 귀하나. <천연 동굴>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전에 하나님이 ‘불’로 녹여,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좁고 넓게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귀한 굴이다. 생긴 대로 깨끗이 씻고 닦아서 쓰면, 불 때마다 ‘천연 동굴의 모양과 형상’이 빛나고, ‘천연 동굴의 향기’가 진동한다. 어떤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자기는 성형 수술이 잘되어 전보다 예뻐졌다고 하며 좋아했다. 본래 옛 사진을 보니, <본래 얼굴>은 ‘천연 동굴 같은 개성의 모습’인데, <수술 후의 얼굴>은 ‘마치 다이내마이트를 터트려 굴 파듯 해 놓은 모습’이었다. <자기 얼굴>을 천연 그대로 두고 ‘다른 형상’으로 만들려면, 운동하여 살을 빼거나 찌우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상’을 보면서 살게 된다.

33.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도 <만물>도 잘못 건들고 잘못 만들고 잘못 개발하면, 10억짜리가 만 원짜리가 된다.

34. <한국의 4대 강>도 잘못 개발하여 ‘민족의 핏줄기’가 ‘하수도 강줄기’가 되었다. <가뭄>을 방지한다고, 그것 한 가지만 보고 한 것이다. 결국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 민족의 대(大)결작’이 사라졌다. 온 국민들이 화가 나서 책망하고 지적했다. 자연이 밤낮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은 사람이 못 한다. 사람이 잘못 손대니, 자연이 썩고 병든다. 모두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시대 만물 계시>다.

35. 미련한 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한다.

36. 구시대 기성도 '시대에 흐르는 강'을 막았다. 새 시대 역사는 '시대에 흐르는 강'을 막지 않는다. 막지 않은 강만 깨끗하듯, 시대 역사도 그러하다.

37.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미련한 자들은 '흐르는 강'을 막아서 썩게 하듯이, 미련한 생각과 행위로 '메시아'를 막았다. 결국 '구시대'에서 썩고 끝났다. 메시아 예수님을 막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따른 자들은 '새 시대, 하나님의 깨끗한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38. <물>은 '흘러야' 아름답고 멋있다.

39. <흐르는 강>을 막지 말고, <흐르는 산맥>을 끊지 말고, <흘러오는 하늘 역사의 뜻>을 막지 말고 끊지 말아라.

40. <자연의 법>을 어기면 계속 '자연 피해'를 보게 되고, <천법과 인법>을 어기면 그로 인해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 본래같이 해 놓을 때까지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

41. <자연 만물>도 <인생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개발하지 않으면, 본래보다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상이라야 천 년, 만 년, 육 평생, 영 영원히 자랑하고 귀히 쓰이며 만족한다.

<2017년 5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계산을 할 때 쉬운 공식으로 안 하고 어렵게 계산하면, 1분에 계산할 것인데 10분도 더 걸린다. 인생 사는 것도 모르면 쉽게 살 것을 어렵게 산다.

2. 어떤 계산을 할 때 <첨단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으니, 계산하는 데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다. <지혜>를 받아서 <쉬운 방법>으로 하니, 10초 만에 계산이 나왔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쉽게 살고, 더 많이 행하고 더 많이 남기게 된다.

3.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누구나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늙기 전에 보다 젊었을 때 일도 많이 해서 많은 것을 남기고, 그리함으로 좀 더 오래 사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남들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쓰면서,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남들보다 세 시간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더 쓰는 길을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하면, '1년 3개월을 더 산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이렇게 30년 동안 계속해도 '3년 9개월을 더 사는 정도'다. 이 방법보다 <10년, 20년, 100년 더 사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았다. 그랬더니 '전에 성자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성령님'도 말씀해 주셨다.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빨리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알게 되니, 1년 걸릴 일을 한 달 안에 하게 된다. 고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오래 산 격'이 된다. 인생 사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인생 10년 살아도 20년, 30년, 50년, 100년 더 사는 만큼 할 수 있다.

4.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일체 되어 그 생각으로 살 때 지혜를 받고, 이와 같이 하여 영적으로 살 때 <하루 종일 할 일>도 '한 시간'에 할 수가 있다. 고로 '남들보다 20배 이상 더 산 격'이 된다.

5.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할 일'만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최고로 오래 사는 방법'이다.

6. <하나님적 차원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며 살 때>, 하루를 살아도 높은 차원으로 살게 된다. 젊었을 때 이같이 행하면, <하루>를 행하며 살아도 '남들보다 5일, 10일 더 산 것'으로 나오고, <1년>을 행하며 살아도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산 것'으로 나온다. 이 방법보다 더 이상적인 길은 없다. 모두 이같이 살아라. 보다 젊었을 때 지혜를 받아서 알고 행하며 살아야 '보다 오래 사는 길'을 가게 된다.

7. 주를 머리로 삼고 지혜로 살지 않는 자들은 '인생을 짧게 사는 자들'이다. 고로 '젊었을 때부터 지혜를 받아 보람 있게 더 오래 사는 자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들은 모르니 '돌아서 가는 길'로 간다. 고로 잠을 안 자고 뛰어가는데도 '지혜를 받아서 알고 지혜의 지름길로 가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초안) 10m 앞의 목적지를 가는데, <지구를 한

바뀌 돌아오는 길>을 택하여 밤잠 안 자고 뛰는 것과, <지혜를 받아 제자리에서 순간 돌아서> 목적지를 가는 것이 얼마나 다르냐.

8. 같은 일을 두고 <지혜>를 안 받고 하니, ‘한 달’ 걸릴 것인데 ‘1년’도 더 걸렸다. <지혜>를 받고 하니, ‘1년’ 걸릴 것인데 ‘이틀’ 걸렸다.

9. 이제 절대 주를 머리로 삼고 주와 하나 된 자만 ‘지혜자’가 되어, 주께 쓰임 받는다.

10. 지혜자가 지적하면 피하지 말고 듣고 고쳐라. 100만 명이 있어도 ‘지혜자 한 명’을 못 따라간다.

11. <지혜의 잠언>으로 그리 말해도 ‘주를 머리’로 삼고 하지 않는다.

12. <지혜>는 ‘아는 것’이다.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구시대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모른다. 지혜를 받기 전까지는 100년이 가도 모른다.

13. <지혜>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시대 말씀’이다.

14. 어느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모두 기도하여 해 났어도,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지혜>를 못 받으니 봐도 모른다. <자연성전 야심작>도 이미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백보좌 상징’으로 구상해서 만들게 하셨는데도 몰랐다. 어떤 형상인지 묻고 <지혜>를 받으니, 성자께서 “하나님 백보좌 상징으로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15. <잔디성전 옆 제1폭포>도 하나님께 “<형상이 있는 폭포>를 만들지 못했다면, 헐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하니, 하나님은 “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셨다. 그래서 “구상은 하나님이지니, 하나님이 만들어야지요.” 하니, 하나님은 “이미 <내가 원하는 구상>으로 만들었다.” 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형상’과 연결시켜도 형상이 안 나왔다. 결국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며 <지혜>로 물어서 깨달았다. <제1폭포>를 만들 때, 처음에는 무조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 생각만 했다. 그러나 그때는 ‘큰 돌이 몇 개’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큰 돌 몇 개’를 가지고, 이미 <한 형상>을 구상하고 만드셨다. 20년 만에 깨달았다. 내가 몰랐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상>대로 만들었으니,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행하셨다. 그때는 급해서 구상을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제1폭포>를 만들려고 ‘큰 바위 4개’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납작한 것>은 ‘폭포수 밑’에 놓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놀게 하는 장소로 만들고, <큰 돌 두 개>는 세우고, <호피석>은 가운데 튀어나오게 세워라.” 하며 구상을 주셨다. 그대로 쌓았다. 그때는 <형상>은 전혀 생각 못 했고, <목적>이 ‘폭포수가 멋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높게 돌 쌓기’였다. 그런데 더 높이 돌을 쌓으면, 뒤에 ‘신선 장소’가 없어지니 더 높이지 못했다. 다 만들어 놓으니 보기 싫지 않았다. 밑에는 ‘선녀탕’같이 ‘작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수영하기도 좋았다. 그때는 ‘최초로 폭포수 작업’을 했기에 ‘큰 돌’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그래서 ‘큰 돌 몇 개’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회장 대(大)폭포’에서도 못 만든 것’을 구상하고 이미 만들게 하셨다.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만든 형상의 폭포’다.

16. (하나님) <자연성전>은 모두 ‘자연스러운 구상’이다. 만일 만드는 자가 어떤 형상인지 알고 만들면, 의식하고 계획적으로 그 모양을 만드니 인위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지혜의 눈을 뜬 자>만 ‘지혜로 만든 나 여호와의 구상의 형상’을 보게 하였노라.

17. (하나님) <자연성전 제3폭포, 연회장 폭포>는 나 여호와가 어떤 형상을 놓고 구상하여 만들었다. <지혜를 가진 자>만 ‘지혜’로 그 형상을 보게 만들었다.

18. (하나님) <자연성전>을 모두 그같이 만들었으니, ‘지혜 받은 자’만 깨달는다.

19. (하나님) 이제 ‘지혜자’만 알도록, 직접 이야기하지 않는다.

20.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는 것>도 ‘지혜’다.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21.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세 시간 더 쓰고 세 시간 더 사는 것>이 ‘더 많이 행하고 더 오래 사는 지혜’이고, <젊었을 때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지혜로 남들보다 10배, 100배 빨리, 많이 하는 것>이 ‘더 많이 행하고 더 오래 사는 방법’이다.
22. <지혜>를 받아야 ‘건강검진’도 제때 하여 미리 병과 죽음을 예방한다.
23.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선교했다. <선교의 지혜>는 받았어도 <자기 건강의 지혜>를 못 받아서, 50대 아까운 나이에 암으로 죽었다.
24. <지혜의 5만 잠언>에 ‘알아야 될 것들’이 거의 다 들어 있다.
25. <지혜>로 하면 ‘불가능한 것’도 한다.
26. <지혜>로 하면 ‘혼자’서도 하는데, <무지>로 하면 ‘1000명’이 해도 못 한다.
27. <세상 학문>으로 잠언을 쓰면 ‘세상 문학’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잠언을 쓰면 ‘깊은 진리가 들어 있는 지혜의 말씀’이다.
28. <세상 사람이 쓴 잠언>은 ‘지식’이다. 욕에 속해 있기에 지키면, ‘욕’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잠언>은 ‘하늘의 뜻’을 두고 써서 읽고 지키면 <영>이 변화되어 ‘영원한 지혜의 삶’을 살게 되고, <욕>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누리게 된다.
29. <지혜의 말>이 무엇이나.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30. <지혜의 삶>이 무엇이나. 전능자 삼위의 말씀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다.
31. <지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이다.
32. 확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주의 뜻이다.” 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다.
33.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34. 하고도 손해를 안 보고, 후에도 전혀 후회가 없어야 <지혜의 행함>이다.
35. 하늘의 구름을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을 풀고 기다리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지혜가 일점일획도 없는 자들이다.
36. <지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된 데’서 온다.
37. <지혜자>는 지혜 없는 자가 먼저 가게 놔두고, 지혜 없는 자가 다 간 다음에 지혜로 얻고 제 갈 길을 간다. <지혜자>는 <지혜 없는 무지한 자>와 못 만난다. ‘생각’이 같아야 만나지는데 ‘생각’이 안 맞으니 못 만나게 된다.
38. <지혜>는 ‘황금 덩이’라서 지혜자가 내놓지 않는다.
39. <지혜>는 ‘꿈의 계시’로도 받는다.
40. <지혜를 받은 자>는 차원이 높아서 딴 세상에서 산다. <자기 머리만 굴리고 사는 자들>은 지혜자를 그냥 두고 본

다. 그러다 몸이 뒹굴어 깊은 계곡으로 빠진다. 그제야 ‘지혜’가 아님을 깨닫는다.

41. 주를 머리로 삼지 않는 자들아. 계속 그러다가는 결국 한계를 맞고, 수고한 것들이 바벨탑 무너지듯 무너진다. 그제야 주를 머리로 삼지 않고 행한 것을 깨닫는다.

42. <지혜 받은 자>는 ‘무사통과’다.

43. <지혜 받은 자>는 ‘안 되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여 해낸다.

44.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이 ‘지혜’다.

45. <아는 것>이 ‘지혜’다.

46. 옛날 사람은 옛날에 살고 끝났다. <지금 사람들은 지금에 해당되게 하나님의 뜻을 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좇으며 사는 것>이 ‘첨단 지혜’다.

47. 조상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그대로만 살면, 미련한 자다.

48. 선조들이 지계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다녔으니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여자들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녔으니 전통을 지킨다고 지금도 그렇게 살면 ‘지혜’가 아니다. 선조들도 ‘지혜’를 받아서 지계를 만들었고, 물동이를 이고 다니며 물을 나른 것이다. 선조들도 그렇게 했듯이, 지금 발달된 시대에 사는 자들도 지금에 맞게 행해야 ‘지혜’다.

49. 선조들이 했던 대로 옷을 안 입고 나체로 다니고, 나무 잎사귀를 옷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때를 재연해 주는 전통 문화 행사’다.

50. 옛날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 시대 뜻’을 펴지 않으시고, <발달된 새 시대 사람들>을 데리고 ‘새 시대 뜻’을 펴 나가신다. 고로 <발달된 새 시대 사람들>이 ‘옛것’만 행하면 부끄럽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뜻을 못 펴신다.

51. 섭리역사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는 ‘그때에 해당되는 뜻’을 펴다. 지금은 ‘또 차원 높은 뜻’을 편다. 섭리사에 새로 온 자들은 ‘구시대 사고’가 없고 ‘이 시대 사고’만 받으니, 빨리 뇌에 저장하고 빨리 실천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자들’을 지도자로 쓴다. <새 시대>에 왔으니 ‘새 시대의 것’은 앞에 놓고, ‘구시대의 것’은 뒤에 놓고 경험으로 쓰면 더 좋다. 그런데 ‘구시대의 것’을 앞에 놓고 쓰니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으니 ‘새로운 자’로 바꾸는 것이다.

52. <자기만이 아는 지혜>는 10억 원보다 더 비싼데, 말해 줘도 가치를 모른다. 그러니 ‘아는 자’만 아는 대로 행하고 누리고 끝난다.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53. 성경에 <지혜자>만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를 안다고 했다.

54. <성경의 연대와 때>도 ‘지혜자’만 알고 계산한다. <지혜자>만 ‘메시아가 오는 때’를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 했다. 다니엘 12장 말씀은 ‘지혜자’만 깨닫는다.

55. <무지한 자>는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세상 지식을 지혜로 삼아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까지 생각하고 판단한다. 결국 헛수고만 하며, 희망으로 이상세계를 기다리기만 한다. 아랫집은 ‘혼인 잔치’ 하는데, 윗집은 ‘슬픔의 초상집’이다. 거리는 ‘담장 너머 차이’다.

56. <미련한 자>는 눈으로 봐도 모른다. <교만과 무지와 고집의 안경>을 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행해도 그렇게도 모르고 잘못 인식하고 대한다.

57. <미련한 자>는 ‘교만과 무지와 고집과 자존심의 큰 책과 작은 책’을 수시로 보면서 행한다. <사람>이 ‘책’이기도 하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만 부리는 미련한 자’를 수시로 만나고 그 말을 듣고 행한다.

58. <미련한 자>는 ‘지혜자’와 같이 못 산다. <지혜로운 자>는 ‘안 해도 될 것’을 안 하고, ‘때가 되면 될 것’은 두고 보고, ‘꼭 해야 될 것’은 당장 행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고통을 겪으면서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안 한다. 고로 지혜자와 미련한 자는 ‘길’이 다르니 같이 못 산다.

59. 한집, 한방에 같이 살아도 ‘지혜자의 생각’과 ‘미련한 자의 생각’이 다르다.

60. 강의를 보내면, 주를 증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나 하는 자들이 있다. 그 강의를 들은 자들이 기대에 어긋나서 미련하다고 한다. 지혜를 못 받아서다.

61. 지도자들과 순회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주를 머리로 삼고 하지 않느냐. 잠언으로 내보내어 깨닫게 하니, 자기인 줄 알아라. 부서를 맡아 순회하는 자가 시간 없다고 5분 만에 3명을 면담하고, 시간이 남으니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이나 한다. 지도자, 목사, 알 만한 사람이 그러니, 보는 자들이 꺼린다. 이 잠언에 해당되는 자는 회개하고 배우고 해라.

62. <잠언>은 ‘채찍’도 된다. 신훈골수를 쪼개서 말하며, 모두 듣고 교훈이 되게 한다.

63. 어떤 사람은 몸에 ‘혹’이 생겼는데, 기도하여 병을 낫게 하겠다고 기도만 하고 병원에는 안 간다. 자기 식으로만 하다가 혹이 커져서 9cm까지 됐다. 결국 수술하고,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듣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니 ‘자기 식’으로 들어서다.

64. 어떤 자는 몸에 ‘혹’이 생겼는데,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으니 수술을 받고 떼어 냈다. 그리고 기도도 했다. 충성자였다. 충성자라도 ‘자기 건강’을 하나님이 다 지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를 받아 ‘자기 건강’을 자기가 살피며, 병원에 갈 것은 병원에 가고, 기도도 했다. 고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차질 없이 즉시 주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혜>를 받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

65.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늘 앞에 충성하니 안 아프겠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고 병원에 안 갔다. 어느 날 편지로 묻기에 병원에 가 보라고 했다. 병원에 가 보니, 몸에 7cm 혹이 생겨서 즉시 수술했다.

66. 누구에게나 ‘암 세포’가 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암’이 진행된다. 고로 2년에 한 번씩, 나이 든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하여 자기 몸 상태를 확인하고, 매일 기도도 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

67. <지혜>는 ‘잘 판단하는 것’이다. ‘잘 확인하는 것’이다.

68. <지혜의 종류>는 ‘천 가지’가 넘는다. 시간 쓰는 지혜, 건강의 지혜, 생활하면서 행할 때마다 해당되는 지혜다. 이미 ‘5만 잠언’을 통해 말해 줬다. 잠언을 책 읽듯 읽는 자는 ‘무지한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잠언>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게 하셨다.

69. <지혜 없는 자>는 ‘주’와 안 통한다.

70. <지혜>는 ‘할 일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다.

71. 주가 지적하면 <지혜자>는 “아멘.” 하고 듣고 고치나, <미련한 자>는 자기주장을 하며 이유를 대고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가다가 넘어진다.

72. <지혜자>와 대면했는데도 자기주장만 펴면서 이유를 대면, 지혜자는 ‘자기만이 아는 지혜’로 네 말이 옳다고 하며 지혜의 방법으로 대하고, 그와 같이 ‘지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그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지혜가 있는지 보고, 그가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와 동행한다.

7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혜의 근본자’이다. 진정 삼위와 하나 되어라.

74.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이 ‘지혜’다. 기도를 깊이 하면, 삼위께서 ‘지혜의 생각’을 주어 깨닫게 하신다.

75. <지혜>는 ‘부지런’하다.

76.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77. <지혜>로 싸워라. 그러면 ‘사탄’도 ‘악’도 이긴다.

78. <지혜>는 ‘이치’다. 고로 지혜를 받으면, 그때마다 합당하게 행한다.

79. 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며 섭리사를 떠난 자들을 보아라. 그것이 ‘지혜’냐, ‘무지’냐.

80. 화를 내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지혜의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81. <지혜>는 말을 안 한다.

82. 성경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보낸 자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못 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백성들은 더욱더 ‘자기의 길’로 가게 되었다.

83. 하나님도 구원자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한 것’을 보이고, 더럽고 교만한 자에게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이며 행하신다.

84. 보는 데 지혜, 듣는 데 지혜, 말하는 데 지혜, 생각하는 데 지혜, 행하는 데 지혜다. 항상 ‘지혜’를 생각해라.

85. 사람이 배우고 알았어도 쓸 때 의식하지 않으면, 배우고 안 것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못하게 된다.

86. <범사에 생각을 온전히 하고 근신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87. 여름에 꼭 장마가 지고 홍수가 온다. <해당되는 곳은 100% 예비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88. 항상 자기 앞에 ‘좋지 않은 것’이 온다. <그것을 연구하고 예비하여 사전에 해결하고 사는 것>이 ‘지혜’다.

89.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도 ‘좋지 않은 것’이 올 때가 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에게 닥친 일도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함께 제거해 주신다.

90. <쫓겨서 하는 것>이 ‘지혜’다. 어느 때는 <합쳐서 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옛것>을 장사 지내야 <새것>을 얻는다.

2. <옛 차>가 <새 차>를 못 따라가듯이, <옛것>이 <새것>을 못 따라간다.
3. <주께 배우지 않아서 옛것만 가진 자>는 <매일 주께 배워서 알고 새것을 가진 자>를 못 따라간다.
4. <옛 사명자>는 <새 사명자>를 못 따라간다.
5. <구시대>는 <새 시대>를 못 따라간다.
6. <옛 사명자>는 ‘그때 그 시대 그 일’을 하고 끝났고, <새 사명자>는 ‘지금 이때 이 시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7. <구시대>는 ‘그때 그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끝났고, <새 시대>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한다.
8.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롭게 맡기신 일>을 해야 빛난다.
9. 빨리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아라.
10. <월명동 개발 후 새것>이 오니, <개발 전 옛것>이 사라졌다. <새 시대>가 오니, <구시대>가 사라졌다.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니, <옛 사명자>는 사라졌다.
11. 보라! <새것>이 왔다. <새것>이 오니 <옛것>은 사라졌다.
12. 섭리사에서도 ‘옛것만 좇으며 구시대에 사는 자들’이 있다. 꾸물거리며 느린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정 터진다. 주가 말하면, 자기 고집과 주관을 비우고 빛을 잡듯 실천해라.
13. 하나님은 <매일 주께 배우며 빛을 잡듯 행하는 자들>만 ‘새로운 차원’에서 살게 하신다. 새 역사 안에서도 그러하다.
14. 이제 섭리사는 휴거되어 더 새롭게 되었으니, 노래도 <옛 노래>는 버리고 <새 노래>로 찬양해라.
15. <세상 곡>에 ‘시대 가사’를 붙인 것은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은 격’이다. 그러니 결국 뺏긴다.
16. <옛 노래를 버리지 않는 자>는 시체를 끌어안고 사는 것과 같다. <새 노래를 받아들인 자>는 시체를 장사하여 새것을 얻은 자다. <새 노래>로 삼위께 영광 돌려야, 삼위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다.
17. <시대 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시대 축복’이 간다.
18. <새 노래를 하는 자들>에게 ‘시대 축복’이 간다.
19. 주가 말하는데도 ‘자기 고집과 생각을 안 버리고 옛것을 장사 지내지 않는 자’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주도 그를 쓸 수 없다.
20. 시체를 놓고 장사 지내지 않으면 시체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조문객도 끊기고, 시체로 인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럽다. 결국 모든 자들이 멀리하게 된다.
21. 지금이 ‘섭리사의 옛것, 자기의 옛것을 버려야 할 때’다. <옛것을 못 버리는 자들>은 ‘게으르고 다 늙은 인생’과 같다.

22. <섭리사 새로운 문화>도 늦게 받아들이는 자는 ‘새것’을 뺏기게 되고, ‘새 역사 안에서 구시대인’이 되고, 결국 ‘패자’가 되어 슬피 울게 된다.
23.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사랑하는 자를 빨리 끌어내듯, 옛것을 빨리 버려라. <옛것을 먼저 버리는 자>에게 ‘새것’을 먼저 준다.
24. 하루 사이라도 ‘새 법을 준 다음부터’는 다르다. 시대가 급히 변화되니, 주도 매일 ‘새 말씀’을 주며 ‘새것’을 가르친다. <시 대 말씀, 새 법>을 듣고, 빛을 잡듯 실천해라.
25. 주가 말씀했는데 <늦게 행하는 자>는 <먼저 행하는 자>에게 ‘부림을 받는 자’가 된다.
26. <매일 주께 배우고 주와 함께 생활하는 자>만 또 ‘옛길’로 가지 않게 된다.
27. <주께 배우고 주와 행한 자>만 ‘주와 같은 자리’에서 살게 된다.
28. 시대 말씀만 배웠다고 ‘주’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배우고, 매일 그에 따른 삶을 살면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주와 함께 ‘역사’에 참여한다.
29. 매일 주께 배우지 않으면, ‘새 뜻과 방향’을 모르고 ‘자기 머리’로 행하니 생활이 뒤떨어져서 따라오지 못한다.
30. <매일 주께 배우고 매일 주와 생활하는 자>만 ‘주’가 쓴다.
31. <머리>가 생각하고 <지체>는 행한다. <주>가 ‘머리’다.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 <지체>는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행해라.
32. 하나님은 항상 ‘새 시대 아는 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 나가시고, 나머지는 그 뒤에 따르게 하신다.
33. 하나님도 주도 ‘새 시대 말씀, 새 방법을 받고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시며 그를 ‘자신의 몸’으로 쓰신다.
34. 암을 발견하면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하듯이, 주가 <새 말씀>을 주면 ‘빨리’ 자기 고집을 꺾고 행해라.
35. <하나님의 때의 역사>는 인원수에 상관없이 ‘빨리 아는 자들’만 그 날 잔치하고 끝나듯 한다.
36. <주의 욕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사는 자>는 ‘복 있는 자’다.
37. <주의 욕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살면 말도 행실도 함부로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빨리 옛것을 장사 지내어 새롭게 하고, 자기 주관과 고집과 생각을 비우고 빛을 잡듯 주의 말씀대로 실천한다.
38. 하나님도 성령님도 ‘육신’ 쓰고 역사하시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육신’이 네 옆에 있는 것이다. 잊지 말아라.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때를 지키는 자>는 ‘미리’ 한다.
2. <구시대가 끝나기 전>에 이미 <새 시대>는 시작한다.
3. 경기하는 자들이 경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이미 그 전부터 진행하고 있듯이, <성약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정한 때에 ‘이 시대 뜻을 이룰 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키우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신약역사의 정한 때>가 끝나고, 하나님은 <성약역사의 정한 때>에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시대 말씀’을 전하며 행하셨다.

4. <정한 때>를 놓고 ‘미리’ 하지 않고서는 <정한 때>를 맞춰서 행하지 못한다.
5. 새벽 1시에 일어나려면 ‘1차원 방법’과 ‘더 완전한 2차원 방법’이 있다. <1차원 방법>은 12시 50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여 겨우 방에서 새벽 1시 기도 시간을 지킨다. <더 완전한 2차원 방법>은 ‘더 미리 행하는 방법’이다. 전날 새벽부터 일찍 행하고 일찍 자는 방법이다. 미리 행하니, 밀리지 않고 제시간에 행한다. 만사의 모든 일들도 이같이 해라.
6. <미리>부터 완벽하게 행해야 ‘정한 때’를 지키게 된다.
7. <가장 빨리하는 지혜의 방법>은 ‘미리 하는 것’이다.
8. <미리 하는 것>이 ‘지혜’다.
9. <정한 때>를 당하면 그때는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해 놓는 것’이다.
10. 글씨를 올바르게 안 쓰면, 다른 글씨로 오해받고 다른 글로 읽게 된다. <사람의 말과 행위>도 제대로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말, 다른 행위’로 생각해 버리고 대한다.
11. 글씨 바로 쓰기, 말과 행실 바로 하기다.
12. 사람은 자기 인식대로 보고 생각하고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고 행해야 제대로 보고 인식한다.
13. 사람은 말한 대로 인식하니, 말하고 나서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하기다.
14. <신같이 확실하게 해 놓은 것>만 ‘확실하게 존재’한다.
15. <때를 지키는 자>만 얻는다.
16. <때>가 되면 ‘때에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17. <때> 지나면 상천하지를 다 봐도 안 보인다.
18. <기다리는 주>도 ‘때’ 지나면 딴 데 가서 활동하니 안 보인다.
19. <온 세상을 다 비추는 밝고 찬란한 태양>도 ‘때’ 지나면 안 보인다.
20. <때> 지나면 안 보이고 할 수도 없으니 ‘제때’ 해라.
21. <제때>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보낸 자도 돕고 같이 해 준다.
22. <때>에 얻는다.
23. <때>에 찾는다.
24. <때>에 보인다.
25. <때>에 ‘하나님’도 만난다.

26. <때>에 ‘성령님’도 만난다.
27. <때>에 ‘주’도 만난다.
28. <때>에 ‘보화’도 ‘귀한 작품’도 얻게 된다.
29.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깨닫고 행해라.
30. <농사짓는 때>를 놓치면, ‘다음 해’에 또 기회가 있다.
31. <앞의 차>를 못 타면, ‘다음 차’를 탈 기회가 있다.
32. <첫 번째 기회>에 못 하면, ‘다음 기회’가 있다.
33. 역사도 <앞의 역사>에서 못 하면, ‘다음에 오는 역사의 때’에 한다.
34.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제때 못 지키면, 다음 기회의 때까지 ‘고통의 기간’을 겪게 된다.
35.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쪼개고 잘라 놓아 구분해 놓으셨다. 그때 못 하면, 계절이 가듯 그 시대는 가서 ‘환경’도 ‘모든 것’도 뒤바뀌게 하셨다.
36. <그렇게도 흔하고 많던 것>도 ‘때’ 지나면 하나도 없다.
37. <때>가 되면 풍부하지만, <때> 지나면 찾아도 없다.
38. <때>가 되면 ‘원하는 것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재촉한다. 그러다 <때> 지나면 애타게 불러도 한 마디도 없다.
39. <때>는 지구가 가듯이 가니, “때야~ 멈춰라!” 하지 말고, 네가 멈추지 말고 ‘때’와 같이 행하여라.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40. 전능하신 하나님은 ‘때’를 느리게도 빠르게도 정하시고, 전체를 보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듯, 시계가 가듯 ‘때’가 계속 머물지 않고 가게 하셨다.
41. <때>는 멈춰 서 있지 않다. <때>는 지구가 가듯, 시계가 가듯 간다. (반복) 고로 “때야~ 멈춰라!” 하지 말고, 네가 멈추지 말고 ‘때’와 같이 행하여라.
42. <순간 지나가는 때>도 있고, <하루같이 가는 때>도 있고, <계절같이 가는 때>도 있다.
43. 자기가 늦게 하면 때가 빨리 가게 보이고, 자기가 빨리하면 때가 늦게 가게 보인다.
44. <자신의 속도>에 따라서 ‘때의 속도’도 좌우된다.
45. 미리미리 하면, ‘때가 천천히 가는 삶’이 된다.
46. 늦게 하면, ‘때가 빠른 속도로 가는 삶’이 되어 항상 뛰어야 된다.
47. 시간을 단축하려면 ‘할 때 하기’다.

48. 가령 글을 쓸 때 시간을 단축하려면, ‘글을 쓸 때 깨끗이 바로 쓰고 교정하면서 쓰기’다. 또 ‘아예 뇌에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쓰기’다. 그러면 세 시간 글 쓰고 세 시간 교정해야 하는데, 아예 쓸 때 제대로 쓰니 네 시간 정도 걸리고, 아예 제대로 썼으니 교정하는 시간을 아끼게 되어 2시간에서 2시간 30분가량 단축된다.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인생 하루하루 삶도 그러하고, 인생 일생 삶도 그러하다

49. 관광을 가서 구경할 때 아예 자세히 볼 것을 보고 오기다. 그때 자세히 안 보면, 나중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봐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니 얼마나 늦겠냐.

50. 공부도 할 때 정신일도 해서 해야 많은 지식을 얻고, 그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하고, 더 차원 높여 하게 된다.

51. 뇌는 <집중할 때>와 <행할 때> ‘높은 차원’에 이르러 생각하게 되고, 몸도 ‘할 때’ 제대로 작동되어 잘 행하게 된다. 고로 ‘그때, 할 때’ 아예 해야 된다. 그때 제대로 안 하고 다시 하려면 시간이 배로 들어가서 시간에 쫓기고, 다시 그 차원의 생각과 행실을 하려면 어렵다.

5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실 때> 같이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일하시듯 하게 되니, 시간이 단축되고, 삼위와 같은 생각과 행실로 실천하니 하는 일도 잘된다.

53. <할 일>을 두고 ‘이것’을 했다 ‘저것’을 했다 하면, 시간이 많이 소모된다.

54. 가령 <그 날 할 일>이 ‘다섯 개’가 있다 하자. 이것 조금 하고, 20분 지나서 저것 조금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서 그것 조금 하고, 다시 남쪽으로 가서 다른 것 조금 하는 식으로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집중도가 떨어진다. 두 가지만 번갈아 가면서 해도 집중도가 떨어진다. 고로 ‘이것’을 다 해 버리고, 그다음에 ‘저것’을 해 버려라. 할 때 하고 끝난 후에 다른 것을 또 하기도.

55. <뇌>는 ‘눈’과 같아서 ‘하나만 집중’해서 봐야 된다.

56. <서쪽을 봤다가 동쪽을 봤다가 하는 자>는 ‘동쪽만 보는 자의 집중도’를 못 따라간다.

57. 눈도 집중해서 볼 때 제대로 보이고, 뇌도 집중해서 생각할 때 제대로 생각한다.

58. <계시>도 집중해야 받고 깨닫는다.

59. 육의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면 ‘혼적 차원’으로 가고, 거기서 더 집중하면 ‘영의 차원’에 가게 된다.

60. 생각도 몸도 ‘집중’하고 ‘때’를 지켜라.

61. <때>를 정성스럽게 대하고 사랑하며, 빛을 잡듯이 빨리 끌어안고 실천해라.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62. 과거에 자기가 기도도 하고 원하고 소원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때’를 맞고 얻게 된 것이다.

63. 과거에 그렇게도 간구하고 원해서 하나님이 <때>에 맞춰 ‘구원자’도 보내시고, ‘줄 것’도 주시려고 보여 주고 듣게 해 주셨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싫다고 안 하고, 외면하고 불신하고 부정하고 안 한다. 고로 ‘구원자’도, ‘줄 것’도 <때>와 같이 흘러가 버렸다. <때>를 맞고 좋아하고 따르는 자만 ‘기다리는 자’를 만나서 잔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된다. 미련한 자는 후에 알고 후회한다.

64. 제때 얻을 것을 얻어라.

65. 하나님께서 섭리역사에 ‘성전’을 예비하시고, <때에 맞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상하고 지어 놓은 건물’을 깨닫게 하시어 샀다. <때>가 되면 ‘때에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 <때>는 ‘원하는 것’을 싣고 가지고 온다.
66. 사탄과 인사탄은 ‘때’를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예정된 일’을 기구 돌리듯 돌리신다.
67. <때>를 잘 맞기 위해 ‘마음과 실천’을 뜨겁게 해라. 그래야 기쁨과 화평으로 가치 있게 ‘때’를 맞고 잔치하며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게 된다.
68. <때>를 맞아도 ‘자기 마음과 생각과 실천’에 따라서 ‘환희와 기쁨과 보람의 차원’이 각각 달라진다.
69. <때>를 지켜 얻기다. 관리하기다. 주신 자와 함께 귀히 쓰기다.
70. <때를 맞춰 오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다.
71. <주>는 ‘때’를 맞춰 오고, <불법한 자와 거짓된 자들>은 ‘때’도 아닌데 나타나서 자기가 주라고 한다.
72. 하나님은 <예정된 자>를 ‘때’에 맞춰 보내신다. <제때를 맞춰 사는 자>만 ‘예정된 자’를 맞고, ‘그 역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
73. 제때 못 하면, 더 조건을 세우고 더 돈도 쥐야 하게 된다.
74. <때>가 되면 가까워진다. 그러다 눈앞에 보인다. 손에 잡힌다. 그때 해야 된다. 그러나 ‘잡은 것’만 남고 ‘잡지 않은 것’은 흐르는 물처럼, 세월처럼 흘러가 버린다.
75. <때>가 되면 산다. <때>가 되면 죽는다.
76. <때에 해 놓은 것>은 ‘자기 것’이 되어 존재한다.
77. <자기가 만드는 때>는 ‘수공의 때’다. <시대의 때>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시는 때’다.
78. <하나님의 때>를 지켜보고, 어떻게 때가 오고 가는지 깨달았다.
79. <때의 차원에 사는 자>만 ‘때가 오고 가는 것’을 본다.
80. <작은 때>에는 ‘자기’가 하고, <큰 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
81. <사명자>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들이다.
82. <작은 시간들>을 아끼고 뭉쳐서 ‘큰 때’를 위해서 써라.
83. <틈 시간>은 적지만, 그때마다 ‘할 일’을 해야 일이 표가 나게 없어져서 죽은 자 장사 지내듯 깨끗하다.
84. <틈 시간>은 일할 것에 비해 적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할 일’을 밀어 넣고 하면 많이 하게 된다. 이는 시간이 적으니, 서두르며 하기 때문이다.
85. 가령 10분에 갈 길인데 시간이 5분만 있다 하자. 그래도 일단 가면, 재촉하고 서두르며 급히 뛰어가니 가게 된다. <틈 시간>을 가지고 자꾸 연습해야, <큰일>도 ‘보다 적은 시간’에 할 수 있게 된다.

86. 어리다고 ‘시대 말씀’이 안 들어가겠다고 안 하고, 다 커서 말도 잘 듣고 ‘시대 말씀’이 잘 들어가겠다고 그들을 붙잡았으면, ‘시대 복직된 하와’를 놓쳤을 것이다. 새 역사에 온 어린 자들도 그러하다. 어려서 길은 좁지만, ‘시대 말씀’은 쭉쭉 잘 들어가서 ‘주의 몸들’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다. 답을 맞춰 보자.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미리 하는 자>가 ‘최고로 빨리하는 자’다.
2. 어린아이라도 미리 하면 ‘최고 빠른 자’가 될 수 있다.
3.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라. 그리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행해라.
4. <미리> 하지 않고서는 ‘제시간’에 못 한다.
5. 연결된 것을 앞당겨야 뒤의 것도 앞으로 당겨지듯이, 미리 해야 뒤의 것이 앞으로 당겨진다.
6.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앞으로 할 역사’를 항상 미리부터 시작하셨다.
7. <구약역사가 끝나기 전>부터 <신약역사>를 펴셨다. <구약역사가 끝나기 전>부터 ‘신약시대 세례 요한 역사’가 시작되어 ‘메시아 예수님의 천국’을 예비하게 하셨다.
8. <성약역사>도 주가 재림한다고 했던 때부터 한 것이 아니고, 미리부터 ‘역사의 사람’을 땅에 낳게 하시고, 그가 성장하도록 키우고 가르치시어 21년 동안 역사를 펴 나갔다. 그로 많은 자들이 ‘시대 구원’을 받고 구름같이 따르게 하시고, 2000년도를 맞이하게 하셨다. 성경에 “인자는 구름 타고 나타난다.” 한 대로 ‘역사의 사람, 그 인구’를 타고 성자가 다시 오셨고, ‘미리 시대 말씀을 외쳐 믿고 따른 인구’를 타고 성자의 육이 왔다. <성약의 세례 요한 때>부터 하면, ‘성약역사를 시작하기 65년 전’부터 <성약역사>를 한 것이다.
9. 새벽 1시에 일찍 일어나려면, 이전부터 ‘1시에 일어나기 위해 할 일’이 시작된다. 전날에 일찍 잘 때부터 새벽 1시 기도를 위해 미리 할 일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성약역사>도 신약역사가 끝나기 전부터 ‘성약의 할 일’을 하면서 진행되었다.
10. 가령 2000년도가 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고 예언했다 하자. 그러면 이미 25~30년 전에 신랑과 신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2000년도에 맞춰서 나타나야 된다. 이와 같이 신약 때처럼 <성약역사>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미리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다. 미리부터 하셨다.
11. 계절이 오는 것을 보면, 미리부터 겹쳐서 온다. <봄>이 끝나기 전에 <여름>이 겹쳐서 온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도 미리부터 와서 시작한다.
12. 내년엔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 올해부터 집을 짓고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이와 같이 ‘미리’ 해야 된다.
13. <미리 하지 않은 자>는 ‘기다리는 자’를 제대로 맞지 못한다.
14.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미리 하지 않은 자>는 ‘주’를 못 맞았다.
15. 예수님 때도 <미리 알고 따른 자들>만 당세에 ‘주의 육’을 알고 맞았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시대의 잠’을 자다가 못 맞았다.
16. 미리 하면 쉽다.

17. 미리 하면 할 수 있다.
18. 먼 길을 갈 때 ‘미리 떠난 자’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
19. 경주할 때도 ‘미리 준비했다가 제시간에 출발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20. 항상 <앞날의 할 일>을 두고 ‘미리’ 해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희망의 때를 맞고, 하나님도 맞고, 주도 맞는다.
21. <미리 하는 자>만 승리하고 성공한다.
22. <미리 하지 않는 신부>는 ‘하늘 신랑’을 못 맞는다.
23. <아는 자>만 미리 하고, <실천자>만 그 날을 맞는다.
24. 다른 것을 포기하고 <앞날의 할 일>을 위해 ‘미리’ 하여라.
25. <앞의 시간>을 지켜야 <뒤의 시간>도 제대로 지키게 된다.
26. <절대자 신>은 ‘미리’ 하여 ‘절대적’으로 하신다.
27. <미리 하는 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미리 하는 기회>와 <그다음, 때가 되어 하는 기회>다.
28.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하여라.
29. 어떤 일을 놓고, 그 일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미리 해 놓으면 완전하다.
30. <해 놓은 것>만 장담한다. <안 해 놓은 것>은 장담하지 못한다.
31. <안 해 놓은 일>은 아무리 장담해도 ‘미결’에 속한 것이다.
32. <해 놓은 것>은 존재하고 있으니, 모두 시인한다.
33. <할 일>은 ‘미리’ 해야 된다. <할 일을 미리부터 하는 자>는 ‘최고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다.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34. <지혜로운 자>는 미리 하고, 분별하고, 분노할 일이 있어도 상대에게 내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한다.
35. <지혜로운 자>는 ‘미련하여 못 하는 자’를 대신하여 ‘좋게 행할 자’로 바꾼다.
36.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더 좋게 행하여 그 길로 갈 자’를 찾아서 바꾼다.
37. <이 사람>이 책임을 못 하면, ‘잘하는 자’로 바뀌야 더 이상 말이 없다. 경주했는데 못해서 바꿨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다.
38. <이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으려다가 못 담으니, ‘옆의 깨지지 않은 그릇’을 가져다 물을 담는다. 고로 깨진 그릇이 말을 못 한다. <깨지지 않은 그릇>을 쓰지 않고 ‘옆의 그릇’을 쓰면, 안 깨진 그릇이 불평한다.

39. <앞에서 경주하는 자>가 넘어지면, ‘뒤따라가는 자’가 앞서 뛰어가는 것이다.
40. <먼저 온 자>가 책임을 못 했는데 ‘뒤에 온 자’가 행하면, <뒤에 온 자>가 ‘먼저 온 자가 하던 자리’에서 사명을 하게 된다.
41. 못 하면, 할 때까지 ‘그 주관권의 교육과 계시’를 들어야 된다.
42. <그 차원의 할 일을 한 자>는 ‘그 차원’을 벗어났으니 ‘그 차원의 교육’은 끝난다.
43. <미리 하는 자>는 여유 있게 하고, 시간에 안 쫓기고, 완전하고, 확실하다.
44. <자기에게 올 병>도 미리 검진하여 알고 예방하면 안 온다.
45. 자기 집 주변에서 계속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하자.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워 놓지 않으면, 강도가 방에 들어왔을 때 위협을 당한다.
46. 도둑이 자기 집에도 올 것을 알고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면, 당하지 않는다.
47. 요즘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여 문제가 일어났다 해도 돈을 싸 짊어지고 가지 말아라.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들은 지능이 낮고 생각이 썩은 자들이다. 일절 응답하지 말고, 신고해서 잡아라. 누가 전화해서 개인 정보나, 통장이나, 돈에 관련된 말을 하면 ‘보이스피싱’이다. 확인해라. 접리사에서도 선생의 이름을 대고 마치 보이스피싱 하듯 돈을 뜯어내는 자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선생의 편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마치 선생이 편지한 것처럼 보여 주며 상대를 안심시킨다. 어떤 자는 ‘선생 싸인’까지 위조한다. 100% 확인하고 완전하게 행해라.
48.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선생의 이름’을 불의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 확인해라.
49.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한다. 처음에는 교역자를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교역자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교인들에게 교역자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고, 교역자 뒤에서 욕하고, 선생에게까지 거짓으로 보고한다. 그리고 교역자를 그 교회에서 쫓아내려 한다. 때가 되니 성령이 사람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행위가 다 드러나게 하셨다.
50. 어떤 사람은 교역자인데 이성 타락을 하고는, 속이고 계속 단상에 섰다. 때가 되니 하나님이 다 드러내어 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한 고로, 회개해도 단상에 세울 수 없다.
51. 휴거되고도 이성으로 빠지거나 술 & 담배를 하는 자들은 ‘그 영의 휴거가 상실’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쫓겨난다. <그 욕>이 땅에서 회개하면서 다시 공적을 세운다. 그래도 <그 영>이 ‘이전보다 못한 세계’로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52. 한 번 <휴거>가 깨지면, 복직이 쉽지 않다.
53. 그 해 농사를 실패했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듯, 죄를 지었으면 복직되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
54. 하나님은 <법>을 주시며, 절대로 <법>을 지켜야 ‘절대 세계 천국’에 가게 하신다.
55. <이성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단상에 서는 자>는 ‘죄에 죄를 더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데, 그때는 ‘죄의 형량’이 높아진다.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
56. <이성 죄를 짓고도 사람들이 모른다고 스스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자>는 ‘축복’을 뺏긴다. 축복을 거두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아예 ‘사명’을 안 준다. 결국 성령께서 감동시켜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내시고,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평신도가 되어 살게 하신다. 빗나가지 말고, 맡은 일을 충성으로 하여라.

57.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과 욕성으로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고,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음모를 꾸민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나쁘게 보게 하여 내쫓는다. 상대가 ‘교역자’라도 서슴없이 음모하여 교회에서 쫓아낸다. 결국 성령이 드러내셨다. 이런 자는 직책이 상실된다. <말세>에는 다 드러낸다. <때>가 되면 드러낸다는 말이다.

<2017년 5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58. 서로 의논하지 않고 하면 오해된다.

59. 어떤 사람은 ‘자기 관점’에서만 보고 5~10배 불러서 말하고 보고한다. 확인해서 사실이 그런가 보면, 아닌 것들이 많다. 100% 있는 그대로만 보고하여라.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자는 ‘자기 것’도 더하고 뺄을 받게 된다.

60. 저마다 <뇌와 생각의 차원>에 따라서 ‘보는 관’이 다르다. 고로 ‘전체’를 보아라.

61. <성자바위>를 보면 ‘각도’대로 ‘각각 다른 형상’이 나온다. 고로 ‘한 각도’에서만 보고, 그것이 ‘전체 형상’이라고 하면 안 된다. ‘다른 각도’에서도 봐야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놓고도 ‘동서남북’을 다 봐야 된다. 다 봤는데 ‘고칠 것과 모순’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게 하면 된다.

62.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다. ‘단점’만 고치면 된다.

63. 글씨를 썼는데 ‘맞는 글씨’도 있고 ‘틀린 글씨’도 있다. 그러면 ‘틀린 글씨’만 고치면 된다.

64. 자기는 글씨를 정확하게 썼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른 글씨’로 보기도 한다. <말과 행실>도 그러하다. 글씨를 정자체로 써야 모두 제대로 보듯이, <말과 행실>도 정자체같이 확실히 하기다.

65. 정자체를 쓰듯,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다. 정자체를 쓰듯, 행실을 제대로 하기다.

66. <말과 행실>이 분명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

67. <보고>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된다.

68. 어떤 목회자는 설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3년 전에 이야기했다. 그리고 목회지에서 뺏다.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하여 설교 지원을 내보냈는데, 또 ‘발음’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빠르다. 3년을 준비했지만, 목회를 내보낼 수 없었다. 고치려면 한 달 만에도 고칠 수 있는데, 3년을 준비했어도 모르고 안 고쳐서 목회 결재를 안 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지원 나갔을 때만 잘하고, 그 후로는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계속 쓸 수 없다. 글씨를 쓸 때 ‘자기만 알아보는 글씨’를 쓰면 보는 사람들이 못 읽으니 안 되듯, 설교할 때도 ‘자기만 알아듣는 발음’을 하면 듣는 자들에게 내용 전달이 안 된다.

69. <자기가 볼 때>는 이상이 없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고쳐야 된다.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며 노래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상대의 법’에 걸리게 된다. 이때는 안 해야 된다.

70. <등>만 찢는다고 <배>도 <등>을 따라 깨끗해지느냐. <배>도 깨끗이 찢어야 된다. 신앙을 할 때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잠언 해석 : 각종 것들이 이 잠언에 해당되지만,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이 잠언을 주신 이유는 -어제는 잠언을 가지고 시 40편을 썼으니, 오늘은 <시>는 안 쓰고 <잠언>만 쓰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등>만 찢냐? <배>도 찢어야지.” 하시며 이 잠언을 주셨다.)

71.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교회의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명’만 구한다. ‘보고 깨달은

자'가 하여라. 그에게 '사명'을 준다.

72. <본 자>가 '사명'을 받고 하는 것이다.

73. 시켜도 안 하면 다시는 말을 안 한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시켰어도 행하지 않으면, 계시를 안 하신다.

74.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다. 그때 실천해라.

75. 위험할 때도 하나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다. 그때 피해라.

76. 섭리사를 놓고 음모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여라. 악평자들과 해를 주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여라. 그들은 이미 '사망'으로 갔으니, 아예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여라.

77. 미리 해서 통과하면, 얼마나 좋으냐.

78. 그 날에 100명이 해도 못 하는 것을 미리 하면 혼자서도 한다.

79. 열차가 오기 전에 미리 건널목을 건너야, 지나가도 안전하다.

80.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다.

81. 땅값, 집값, 물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면, 능히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할 일을 두고 미리 하기다. 예비하기'다.

82. 적이 오기 전에, 괴물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자리를 떠나면,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미리 하기'다.

83.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기 전에 미리 떠나듯, 이와 같이 미리 하라고 알려 줬으니 미리 하여라.

84. 하나님은 새벽부터 미리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따라 미리 하여라.

85. 짐승이 오기 전에 미리 나무 위로 피하고, 큰 돌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나무 밑으로 오면, 큰 돌로 때려서 쓰러뜨려라. 미리 피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물리고 싸워야 된다.

86. 시계 배터리가 떨어지면 힘이 없어서 점점 천천히 가다가, 결국 멈춰서 죽어 버린다. 생명들도 그러하다. 시계 배터리가 다 되기 전에 미리 교체하듯, 생명들도 신앙이 죽기 전에 미리부터 살피고 관리하기다.

87. 지혜 없이 '성장하지 않은 자'를 쓰지 말고 '성장한 큰 자'를 써라. '큰 자'를 쓰다 보면 '어린 자들'이 말씀 듣고 행하며 크게 된다. 그때 그들을 쓰면 된다.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꿈을 꿔는데 어떤 꿈인지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은 다음 날 행해 보면 알게 되고, 한 기간 동안 행해 보면 알게 된다.

2. 꿈에 '큰 밤나무 아래'에서 '큰 밤 4~5개'를 주웠다. 처음에는 '잠언을 받는 꿈인가' 생각했다. 새벽 잠언을 안 받고 기도했다. 그러다 오전에 '새 노래에 대한 잠언'이 왔다. 첫 번째 잠언은 - <새 역사의 노래 가사>는 기쁘게 <세상 슬픈 곡>에 가사를 붙이니, 노래가 슬프게 됐다. (엿다.) 두 번째 잠언은 - <말의 내용>에 따라서 '말하는 톤과 심정'이 좌우되듯이, <노래 가사>에 따라 '곡'이 좌우된다. (엿다.) 이후에 '노래 네 곡'을 작사 작곡했다. 그제야 '꿈에 큰 밤 4~5개를 주운 것'이 생각났고, 이것에 대한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꿈이 풀렸다.

3. <하나님 주관권 안>에 들어오면, 수만 가지가 ‘죄’가 되기도 하고, 수만 가지가 ‘의’가 되기도 한다. (섭리사와 민족과 온 인류를 놓고 회개기도 하다가 받은 잠언)

4. <옛것>을 버려야 <새것>을 얻는다.

5. <옛것>은 ‘지나간 것’을 말한다.

6. <옛것>은 ‘헛 옷’이다. <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게 된다.

7. <옛것>은 ‘몸의 때’다. ‘노폐물, 배설물’이다. 몸을 깨끗하게 씻어 때를 없애고, 배설하여 없애야 존재한다.

8. <옛것>은 ‘길 가는 데 장애물’이다. 장애물을 없애야 ‘갈 길’을 간다.

9. <옛것>은 ‘과일 껍질’이다. 까야 속의 내용물을 먹는다. 이와 같이 <옛것>을 없애야 <새것>을 취한다.

10. <자기를 중시하여 좋아하고 사랑하던 것>을 버려야, 그제야 <하나님을 중심한 더 좋은 것>을 보여 주신다.

11. <자기를 중시>하여 거기에 빠지면, 이성을 잃고 행한다.

12. <하나님과 주를 중시>하여 행하면, ‘하나님과 주의 마음’으로 행하니 이성을 잃고 행하지 못한다.

13. <그 시대의 것>은 ‘그 시대에 계시한 것’이다. <옛날 것인데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이미 그 시대에 하고 끝났으니 머리 아프게 풀 것 없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나온 계시들은 거의 ‘그 시대’에 이루고 끝났다.

14. (하나님) 사람이 배우고 들어야 알고 행하니, 기도만 하지 말고 가르쳐 줘라.

15. (하나님) 쉽 없이 지도자들을 가르쳐 줘라.

16. (하나님) 똑같은 존재인데 ‘악마’가 되고 ‘선인’이 된다.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된다.

<2017년 5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야 전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은밀한 것은 ‘말씀’으로 안 하시고 ‘사람의 뇌 생각을 조종’하며 하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좋아하며 행한다.

3.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보낸 메시아에게만 점진적으로 가르치시어 은밀하게 행하게 하신다.

4. 하나님께 나를 이리저리 이끌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상대를 이리저리 이끌면서 네 말을 듣게 하는 것이 좋으나, 상대가 네게 배우고 자기 스스로 행하여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으나.”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돌이 있는데 네가 들어다 네가 원하는 곳에 세워 보는 것이 기쁘겠느냐. 돌이 네 마음을 알고 스스로 그 자리로 굴러가서 세워져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신기하고 기쁘겠느냐.” 하셨다.

5. (하나님) “인생들이 나 여호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 그렇게도 신비하고 기쁘다.”

6.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도 생각이 일체 되어 스스로 알고 행할 때 기쁘고, 모르면 물어보고 스스로 행할 때 그렇게
도 기쁨이 되고 사랑이 간다.”
7. (하나님) “스스로 노력하고, 나 여호와와 성령의 마음에 맞추어 늘 물어보면서 원하는 것을 해 줄 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
8. <자기가 좋아해서 스스로 행하면서 오는 기쁨>이 ‘근본의 기쁨’이며, 고로 그 기쁨이 오래간다. <자기 기쁨이 없는
데 상대가 기쁨을 줘서 오는 기쁨>은 마치 코미디언이 웃겨서 웃는 듯한 ‘억지웃음’이며 ‘억지 사랑의 기쁨과 흥분’이
다.
9. <진리>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
10. 자동 기계가 수동 기계보다 좋듯이, 지구가 자동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듯 해야 좋듯이, 계절이 자동으로 오고 가고
해야 좋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주와 일체’ 되어 ‘자동으로 스스로’ 해야 기쁘고 좋다.
11. 모두 ‘하나님 뜻 안의 자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행하여 ‘자동 인생’이 되어라.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과의 대화>를 ‘노래 가사’로 하고, <하나님과 성령과의 대화 톤>을 ‘곡’으로 오르내린다.
2. <하나의 대화>가 ‘노래 한 소절, 한 가사’다.
3. <자기가 겪은 것>을 ‘시’나 ‘노래 가사’로 쓰고, 거기에 강약을 따라서 ‘곡’을 붙인다.
4. <민족이나 한 사람이 겪은 것> 중 핵을 ‘가사’로 쓰고, 그 사연에 따라서 ‘곡’을 붙인다.
5. 한 자씩 읊어야 된다.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
6. <환경>을 ‘가사’로 읊고, <환경>대로 ‘곡’을 붙인다.
7. <사연>을 ‘시’로 읊고 ‘노래 가사’로 써서 거기에 ‘곡’을 붙여 노래로 만드는 것이다.
8. (하나님, 성령님) <사연>이 좋아야 된다.
9. 글도, 인생도 ‘교정’이다.
10. <몸>은 움직여야 되니 이리저리 흔들려도, <생각>은 흔들리지 말아라.
11. <가사>를 바꿔야 <곡>도 바뀐다.
12. 섭리의 새 가사, 새 곡이다.
13.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신다.
14. 사람들이 잘못 계산하니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된다.
15. (하나님, 성령님) 산골짜기라도 사람이 많으면, 산골짜기라고 안 한다.

16.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렇게도 많이 열심히 하게 된다.

17. <할 일>을 해야 기쁘다.

18. 올라가야 '전에 우러러보이던 것'이 밑으로 보인다. (섭리사 옛 노래 개사곡을 부르다가, 새로 가사도 짓고 곡도 붙여서 부르니, '옛날에 쓴 가사들'이 밑으로 보인다고 하니, 성령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어떤 개사곡은 자기 남편이 일본군에 잡혀가고 부인 혼자 남아서 남편을 기다리며 부르던 노래다. 그런 곡에 '새 시대 가사'를 붙이니 안 맞았다.)

19.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죽음과 위험은 두려워하는데, <관리>는 잘 안 한다.

20. <자기 생명 관리>를 매일 해야 된다.

21.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큼 매일 '생명 관리'를 하신다.

<2017년 6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아는 자>만 살아 나가고, <모르는 자>는 죽어 나간다. (평소 삶 속에서, 그리고 영계에서)

2. <자기 할 일>을 얼마나 못 했는지 깊은 기도를 해 보고, 영계에서 깨닫고 보아라. 그럼 알게 된다.

3. 살인자들도 겉만 보면 전혀 표가 안 난다.

4. 사람이 <혈기나 분노가 일어났을 때>나 <안 좋게 흥분됐을 때>는 마음과 생각이 다른 세계에 처해서 행한다. 그래서 그때 행한 것은 평소에 생각이 잘 안 난다.

5. 사람을 죽인 자도 <극적으로 혈기가 났을 때> 마음과 생각이 다른 세계에 처해서 행했기에, 평소에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6. <기빠서 극에 처해 흥분되어 한 일>도 보통 때에는 뇌신경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기억이 잘 안 난다.

7. 과거에 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생각해도 잘 기억나지 않았다. 다시 그때같이 오랫동안 극으로 기도하니, 그때 기도했던 때가 흰히 기억났다.

8. 자기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낼 때, 전에 화냈던 것이 기억난다. 이는 뇌신경이 예민해져서다.

9. 마약이나 담배나 술을 먹고 환각에 빠져서 했다가 깨면, 그때 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10. 선(善) 쪽으로 극도로 차원 높여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작사 작곡도 하게 되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고, 문제가 되는 것을 더 좋게 해결할 방법이 흰히 생각난다.

11. 기도하고 깊이, 높이 차원을 높였을 때 제대로 보게 되고, 평소보다 이상적으로 보게 된다.

12. 무엇이든지 평소에 그냥 보고 생각하면 잘 안 보이는데, 집중해서 오래 확인하고 보면 전체가 보인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와 대화하고 확인받고 판단하여라.

13. 평소에 어떤 조형물을 한 장소에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모순이 생각나서 안 했다. 한 번 설치하면 그대로 놔야 되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조형물을 놓을 자리를 생각했다. 그랬더니 평소에는 안 될 곳이 좋은 입지 조건으로 보여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도 거기가 좋다고 하셨다.

14. 월명동 자연성전 개발을 놓고도 오랫동안 기도하니, 하나님은 영계에서 보여 주셨다. 고로 '시멘트'로 할 것을 '돌조경'으로 하여 후회 없이 하게 되었다.
15. 주께 묻고, 깊이 기도하고 하여라.
16. 어떤 사람은 취직해도 될 자이기에 취직하도록 간구해 주었다. 그러다 좋은 자리가 났는데, 묻지도 않고 안 한다고 했다. 기도해 주어 난 자리인데,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했다.
17. 주께 묻지 않고 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주는 하늘 축복'도 이방인이 가져간다.
18. 교역자들은 다 모른다. 주와 같이 기도해 주고, 답을 찾아 주고, 대답을 해 주지 못한다. <지체>는 '머리'가 될 수 없다.
19. 지도자들은 면담을 해 줄 때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라. <보화가 묻힌 밭>을 같듯이, '깊이 진정으로' 해 주어라. 3분, 5분에 한 명씩 면담해 주고 면담했다 하지 말아라.
20. 섭리사 10대 계시자가 한 사람을 면담한 사연이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해 영계에서 영이 묶여 있기에 풀어 주려고 죄를 고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그래서 네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죄를 놓고 대신 회개해 주며 면담해 주니, 그제야 죄를 고했다. 다 끝나니 다섯 시간이 지났다. 한 생명을 두고 다섯 시간을 써서 결국 그 영을 사망에서 나오게 해 주고, 육도 자유롭게 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서 지도자는 주의 이름으로 순회한다고 하면서 자기 간증이나 하고, 모두 면담을 기다렸는데 5분에 두 명씩 면담해 준다. <형식 면담>을 하면 '무책임한 자'다. 고로 주가 더 쓸 수 없다.
21. 기도도 진정으로 하고, 면담도 진정으로 해 주고, 말씀도 진정으로 전해 주고, 전도도 관리도 진정으로 해야 된다. 외식과 형식으로 하고, 인사치레로 하는 자들은 '섭리사의 바리새인들'이다.
22. 면담한 것들이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는 것을 진정 알아라.
23. <지체>도 부분적으로 느끼고 알기는 하지만, 저울에 달고 자로 재는 것은 <머리>가 해야 된다.
24. 평소에 판단하지 말고, 주께 묻고 기도하여 차원 높인 후에 판단하고 행하여라. 섭리사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평소 자기 판단대로 행하여 해를 주지 말아라.
25. 생각하면, 평소에 봤던 것이 뇌에 영상으로 떠올라 보인다.
26.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에 해당되는 <생각>을 창조하시어, 사람이 하나님 안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발달시켜 행함으로 '신의 대상체'가 되게 하셨다.
27. <생각>으로 '신의 차원'까지 오르게 창조하셨다.
28. <생각>을 통해서 '혼'으로 '혼의 세계'도 보고, <생각>을 통해서 '영'으로 '영의 세계'도 보게 된다.
29.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보인다.
30.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느낀다.
31.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 깨닫고 알게 된다.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일을 맡길 때는 맡긴 자에게 책임지라 하고 다 맡기면 안 된다. 그러다 일 저지르면 끝난다. 그러면 깨진 달걀을 원상 복구 못 하듯 그러하다.
2. 못 할 자에게는 아예 맡기지 말아라.
3. “네가 책임져!” 하고 맡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못 할 자에게 맡겨서 문제가 생기면 끝난다. 맡긴 자가 죄지은 자가 된다.
4.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방법과 핵’만 알아도 그 일에 성공한다.
5.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은 ‘천천히’ 하면 된다 하자.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 일이 잘되는 방법과 핵’을 몰라서 안 됐다.
6. 자료와 기술이 다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빨리해서’ 제대로 안 돼 버렸다. ‘천천히’ 했으면 음식도 익고 과일도 익고 일도 제대로 됐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하나’만 알면 성공한다.
7. 어느 때는 자료와 기술이 다 있는데 ‘너무 늦게 천천히’ 해서 안 되는 일도 있다. 늦게 하니 ‘때’가 지나 버린 것이다. <빛을 잡듯 빨리할 것>은 ‘빨리’해야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핵심 하나’만 알면 성공한다.
8. 어떤 일은 ‘한 번’에 해야 성공한다. ‘두 번째’에는 기회가 없으니, ‘한 번’에 아예 잘해야 된다.
9. 어떤 일은 ‘두 번’에 해야 된다. 이때는 ‘한 번’에 하면 안 된다.
10. <한 번 이야기하고 허락하는 일>도 있고, <한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허락하는 일>도 있다.
11.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다. 그때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설득시켜서 같이 해야 된다.
12. 짐승을 잡으려는데 혼자서는 힘들었다. 이때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산 능선에 세워 놓고, 자기는 밑에서 소리치며 짐승 몰이를 했다. 어린아이라도 산 능선에 서서 보며 짐승이 어디로 산을 넘어가는지 알려 주면, 쫓아가서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짐승을 잡으면 어린아이를 그냥 보내지 말고, 아이지만 어른이 한 만큼 했으니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여라.
13. 어떤 일은 ‘혼자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때는 ‘혼자’라도 꼭 해야 된다.
14. 어떤 일은 ‘안 하면 되는 일’이 있다. 이런 일은 하면, 오히려 손해 간다.
15. 어떤 일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틀렸다 생각하고 “지금 말고 다음에 하자.” 했다. 그러다 결국 못 하고 한 세월이 갔다. 2분이라도 빨리하면 4분처럼 쓰고, 10분처럼 쓰게 된다. <지혜>는 ‘판단’이다.
16. 시간이 너무 적다고,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라. 그러다가 더 시간만 가니 정신일도 해서 해라. 2분이라도 뛰면 300m를 간다. 걸어가려고만 생각하고 계산하니 시간이 너무 적다 한다.
17. 과거의 삶을 보면 어떤 일은 1분이면 할 일인데 ‘시간이 30분은 있어야지. 1분밖에 없네.’ 하면서, 거의 다음으로 미루고 안 했다. 그러다 그 후의 시간이 다시 올 때까지 한 세월이 가기도 했다.
18. 편지도 20분이면 한 장을 쓴다. 그런데 20분도 없으니 안 썼다. 그러다 1분이라도 급하게 ‘카톡 같은 편지’를 쓰니

됐다. 핵적으로 짧게 전달하나 길게 전달하나 ‘전달’은 같다. 1분이 짧다고 계속 그 1분을 미루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몇 달, 몇 년이 가게 된다. 그러다 한 세월이 간다. 신앙의 일도 그러하다. 기도, 찬양, 삼위와의 대화, 자기 관리, 생명 관리, 전도, 회개, 강의도 그러하다. 1시간, 2시간이 있어야 하느냐. 1분, 2분, 5분, 10분만 있어도 해보아라. 하는 만큼 된다. <지혜>는 ‘판단’이다.

19.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하고 대화하고 관리하고 강의해도 1분, 5분 한 것만큼 못 한다. ‘핵’을 못 했기 때문이다.

20.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사전에 못 하게 하여라. 사고 나서 사람을 죽이면 복직이 되느냐. 어떤 형벌을 줘도 복직이 안 된다. 아예 사전 교육을 하여 차단하는 것이 ‘최고 지혜의 방법’이다.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뺏기면, ‘그 시간 속에 들어 있는 보화들’을 뺏긴다.

2. <제시간>을 잡고 행하여 ‘그 시간 속에 해당되는 것’을 얻어라.

3. 인간의 생각은 기억이 뚜렷해도 너무 잘 잊어버린다. 고로 ‘기록해 놓고 수시로 보며 행하기’다.

4.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수시로 잊어버리지만, <실천해 놓은 것>은 실체가 되어 눈으로 보니 안 잊어버린다.

5. <생각과 사상>은 강하나, 이는 ‘정신적 존재’라서 수시로 잊는다.

6. <생각>, 그리고 <실체>, 두 존재의 세계다.

7. 사람이 좋은 것도 <생각>만 하면 ‘마음’만 기쁘다. 이는 <실체>가 아니니 먹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실체를 이루지 못하여 곤고하다.

8. <생각>을 행하여 <실체>를 이루면 ‘마음’도 기쁘고, 실체를 사용하니 ‘삶의 육적 기쁨’도 얻고 누린다. 그로 인해 ‘영도 변화’된다.

9. 천국도 생각으로만 존재한다고 믿으면 못 간다. <육>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영>이 ‘천국에 속한 영으로 변화’되어 ‘실체 천국’에 가고, ‘영의 세계의 실체’를 얻게 된다. <육>은 땅에서 행하여 ‘보이는 것들’을 얻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접하며 쓰고 누린다.

10.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다.

11. 존재해도 안 쓰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12. 시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 하자. 시간이 있어도 전혀 안 쓰는 자는 시간이 없는 자와 똑같다.

13.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 하자. 돈이 있어도 안 쓰는 자는 돈이 없는 자와 똑같다.

14. 누구든지 ‘자기 몸’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 쓰면, 몸이 없는 자와 똑같다.

15. <실천하는 자>가 ‘신’이다. 신은 거침없이 행하신다.

16. 취하기다. 쓰기다.

17. 황금 덩이도 쓰지 않으면, 없는 자와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다.
18. 시대 말씀도 받아들이고 취하기다. 그리고 쓰기다. 전하기다.
19.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쓰면,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을 줘도 안 쓰는 자는 말씀을 못 받은 자와 똑같다.
20. 얻기다. 쓰기다.
21. 생각하기다. 행하기다.
22. 영원히 사랑할 존재를 찾기다. 믿고 섬기기다. 그 말을 듣고 행하며 사랑하기다.
23. 자기가 진리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니 사탄이 유혹하지, 자기가 일사천리로 하면 사탄이 못 건드린다.
24. 자기가 문제다.
25. (하나님) 내가 말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이다.
26.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지옥'에도 가는 것이다.
27.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죽음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실패도 했다.
28.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힘들어도 한 자는 하나님이 돕고 함께하시어 됐다.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시에 하루 종일 만물을 봐도 '그중의 몇 가지'만 계시로 쓰이고, 꿈에 많은 것들을 봐도 '그중의 몇 가지'만 계시로 쓰인다.
2. <기둥>이라도 집을 지을 때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집'에 속하지 못하고 따로 놀게 된다.
3. 동물도 '옛날에 지나간 것'은 안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간 것'도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안 먹는데, 기성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지났는데도 기성의 것을 먹고 마시며 산다.
4.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여 사고가 나고, 고생도 하고, 지옥에도 간다.
5.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여, 자기 스스로 고통을 받고 운명이 뒤바뀐다.
6. <사람의 생각>이 '그릇'이다.
7. 사람은 '생각'으로 차원을 평가한다. 그 <생각>이 '행실'을 결정짓는다.
8.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죄와 악'이 성하게 되어 '악의 세계'가 되니,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9.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도 <축복>도 쉬지 않으신다.
10. 화장실에 갔다 왔으면 씻고 나서 먹는 잔치에 가듯,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대화도 하여라.

11. 주 앞의 세례 요한들이 먼저 증거도 하고 회개도 시켜라.
12. <죄> 속에 ‘심판할 것들’이 다 들어 있다.
13. <죄>를 그냥 놔두면 ‘사탄의 것’이 된다.
14. <죄>를 그냥 놔두면 ‘죄’와 같이 썩어 없어진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15.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을 보고 다 살리신다.
16.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은 ‘너희 인식의 차원, 생각의 차원’대로 들어가느니라.
17. (하나님) 세상이 넓듯이, ‘너희 마음’도 넓어야 하느니라.
18. (하나님)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는 자기만 듣듯이, 자기 주관적 계시는 자기만 듣느니라.

<2017년 6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도 연구하고 좋게 만드는 것이다.
2. 편하게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불편한 곳을 편하게 만들어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둘째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을 같고 닮아서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
3. 그러나 불편한 곳을 다 편하게 만들 수는 없다. 가령 등산길이 험하다고 해서 산길을 다 닦을 수 있겠느냐. <자기>도 산을 잘 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산길>도 닦아야 편하다.
4.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만 만든다고 해서 다 편할 수도 없다. 가령 생활할 때 집이 너무 좁아서 환경이 불편한데, 자기만 만든다고 해서 편하겠느냐. <환경>도 만들고 <자기>도 만들어야 편하다.
5. <개발하고 만들 것>은 만들고, 나머지는 <자신의 마음과 몸>을 같고 닦고 기술을 익혀서 삶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된다.
6. <환경>을 최고 편하게 만들어 놔어도 <자기 생각과 몸>도 움직여야 살아 나가니, <자기 생각과 몸>을 닦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편하다.
7. 사람이 편하려고 <기계>를 만들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그가 대신 일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기계나 다른 사람을 통해 하면, 자기는 일함으로 인해 오는 보람을 못 누리고, 일의 행복을 못 느낀다.
8. 가령 음식을 입에 넣고 깨물고 씹기 불편하고 힘들다고 모든 음식을 제분해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훌쩍 마셔 버린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보람’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사람이 편하기만 하려고 모든 일을 기계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하기만 하면, ‘인생 생활하는 맛과 보람’을 누릴 수 있겠느냐.
9. 편하려고 등산을 안 하면 ‘산의 아름다움’은 못 느낀다. 이와 같이 편하려고 자기를 같고 닦지 않고 안 움직이면 ‘인생의 보람과 아름다움과 맛’을 못 느낀다.
10. 자기 고향 지역을 다니기 힘들다고, 산과 개울을 다 없애고 넓은 길을 냈다. 그랬더니 나무들과 바위들도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졌다. 고속도로같이 되었다. 한쪽에 사람이 다니도록 불편한 것만 개발하면, 고향에 여전히 물도 흐르고 나무도 바위도 있어서 아름답다. 인생 삶도 그러하다. 편하려고 앞에 가리고 있는 산을 없애고 나무를 다 베 버리고 바위를 다 깨부수어 없애면, 삭막한 사막을 걸어 다니듯 하게 된다. <환경>도 개발,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도

개발이다.

11.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 구상대로 개발’했다. 그래서 산을 하나도 안 없애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바위들도 더 갖다 놓고, 소나무들과 각종 나무들을 더 심고, 원래 없던 호수와 폭포수를 만들고, 잔디성전을 만들고, 운동장과 산책로와 건물 등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더 아름답고 보기 좋고 쓰기 편하게 됐다.

12. 한국의 수도 <서울>은 예전에는 계곡의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울창해서 아름다웠다. 지금은 큰 산만 남기고 다 없애고, 거기에 길을 내고 집과 건물들을 지었다. 하나님이 구상하셨으면, 시내에 ‘산’을 그대로 놓고 더 좋게 개발하셨을 것이다.

13. 도시는 편리하나, 아름답지는 않다.

14. 어떤 나라의 도시는 ‘산’을 그대로 놓고 개발했다. 도시에 계곡이 있어서 물이 흘러가고, 그 사이에 집을 지어서 아름답다.

15. 도시라도 ‘산’을 끼고 있으면 아름답다.

16. 도시는 답답하니, 사람들은 휴일마다 도시를 벗어나서 멀리 ‘산과 계곡’에 갔다 온다.

17. <월명동>도 사람들이 구상하고 개발했으면 앞산을 없애고, 동그래산을 없애고, 뒷산을 없애고, 운동장을 더 크게 하고, 산이 앞을 가리니 산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을 많이 지었을 것이다. 앞산을 없애서 인대산이 가물가물하게 앞산으로 보이고, 봄가리골 뒷산이 앞산으로 보였을 것이다. <물 있는 곳>이 멀면 힘들고, <산>이 멀면 멀어서 흐릿하여 아름다움이 제대로 안 보여서 피곤하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했더니, 월명동 운동장 가운데서 보면 앞산도 뒷산도 5m 거리로 가깝게 보인다. 그러니 산의 향기가 풍기고, 나무도 돌도 꽃도 제대로 잘 보여서 아름답다.

18. 사람의 시야에 따라서 큰 나무를 제대로 보려면, 5m 앞에서 봐야 된다. 그 이상 더 떨어져서 보면, 큰 나무도 알아보게 작게 보인다. 큰 나무를 10m 떨어져서 구경하면, 열 아름 되는 나무도 일곱 아름 되는 나무로 작게 보인다. 5m 앞에서 봐야 큰 대로 잘 보인다. 사람도 그러하다.

19. <월명동 지형>도 너무 크면, 마치 월드컵 경기장 중앙에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명동이 ‘산’으로 둘러싸여 잘 보이게 만들어 놓으셨다. 월명동은 지형도, 거리도, 형상도 ‘구상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곳이다.

20. 사람의 지체도 너무 크면, 그 지체 같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각 지체마다 그 크기를 합당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관리를 못 해서 배가 나오고 몸무게가 초과되면 불편하고, 아름다운 구조가 사라지게 된다.

21. <앵두>가 사과만 하면 앵두 같지 않고, <의자>가 너무 크면 의자 같지 않고, <침대>가 너무 크면 침대 같지 않다. 다만 그 존재물의 크기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큰 앵두’가 있고, ‘큰 의자, 큰 침대’가 있다. <손목시계>가 너무 크면 ‘탁상시계’로 보이고, 더 크면 ‘벽시계’를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지체>도 그러하다. 배가 너무 크면 ‘임신한 배, 살찐 배’로 보인다.

22. <하나님>도 신이라고 키가 큰 나무같이 크고 몸이 세 아름다이 넘는 나무같이 크면 ‘인간의 사랑의 상대체’ 같지 않으니,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맞게 존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보다 조금 더 크게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월명동 성자바위만 하면, 하나님이 귀엽다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 놀라서 도망갈 것이다. 너무 크면,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눈치를 보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는 ‘인간의 사랑의 상대체’이시다. <사람의 육신>은 작지만 <사람의 영>은 육보다 크다.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사람의 영 크기’에 맞춰서 존재하신다. <사람의 영>은 대개 2m 정도이고, 그보다 조금 더 크기도 하다. 육신도 키 큰 사람이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듯이, 영들도 개성대로 키가 1m 80cm에서 2m 50cm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영들과 같이 서 계시면 “야~ 하나님은 정말 키가 크다. 어마어마하다.” 이런 소리를 안 한다. <하나님>이라고 키가 그렇게 크게 존재

하지 않으신다. 다만 <영>이라서 크게 보이게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한다. <월명동 표상 솔>을 보아라. <표상 솔>이라고 해서 다른 나무보다 키가 다섯 배 크나. 조금 더 크다.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도 이 이치와 같다.

23. 편하려면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도 만들고 개발하고, <환경>도 만들고 개발해라.

24. <한 명>을 잘 가르치면 그 한 명이 <전체>를 가르치니, <한 명을 가르치는 것>이 곧 <전체를 모아 놓고 가르치는 것>이 된다.

25. 섭리사에서 <한 명>이 누구냐. ‘가르치는 자의 몸이 되는 자’다. 그 <한 명>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전체>를 가르친다. 고로 그 사람에게 배워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한 사람’인 줄 알고, ‘가르친 그 한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그 사람을 배척한다. 지금이 어느 때냐.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모른다.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자기만 안 배우니, 자기만 모르고 손해다.

26.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안 만들려고 그리도 신경 쓰시며 애써 보기 싫게 구상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맞히는 사람은 그림 한 점을 선물로 주겠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답’과 ‘맞힌 시간’을 기록하여 교단으로 보내 주고, 교단에서 취합하여 선생에게 보내 주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신은 뛰고 달린다. 신이라고 말만 하고, 백보좌에 앉아만 있지 않으신다.

2.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3. 기도하며 실천이다.

4. 안 한 것은 10년을 두고 봐도 그 자리에 그냥 있었다. 행하니, 일순간에 행한 대로 되었다.

5.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넘겨야 맛있다. 이와 같이 행해야 맛을 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로 하여 이루시기도 하지만, 친히 행하여 이루신다.

6. <왕>이라도 안 하면 세월이 가도 그냥 있고, <어린이>라도 행하면 딴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7. 작품을 만들 때 재미있듯이, 자꾸 생활하면서 행해야 인생 재미있다.

8. 행하면 어떤 것은 10배, 20배 얻게 되고, 어떤 것은 100배, 300배 얻게 된다.

9.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하는 재미, 행하는 기쁨, 행하여 얻는 보람’으로 살게 하셨다.

10. 창조의 기쁨, 만드는 기쁨, 행하는 기쁨이다.

11. 개발하고 만들면 ‘지상천국’ 같이 만들게 된다.

12. <천국>도 하나님이 천인들과 함께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어 놓은 지상’만도 못했을 것이다.

13. 자기를 만들기다.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다. 육신이 절대자 삼위일체와 같이 살면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고, 절대자의 생각으로 뜻을 이루며 <영>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형체’로 만들어 살기다.

14. <육신의 것>은 100년 누리고 끝나니, 인생 100년 희망밖에 없다. 더 희망이 있다면 자기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후손들이 받는 것뿐이다. <자기 영>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기’다. <자기 영>은 ‘자기 육의 삶’을 통해 만들어진다.

15. 세상에서 왕을 해도, 명예를 누리고 살아도, 재벌이 되어 얻고 살아도, 세상 육적 사랑을 누리며 살아도 늙으면 생각이 안 난다. 기억 세포가 다 죽어서 기억을 못 한다. 그게 ‘육의 한계’다. <영>은 항상 기억하고 기쁨을 누리며 신이 되어 산다.

16. <육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부귀영화를 얻고도 못 누린다.

17.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살아 있어 총명해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도 찾고 누린다.

18. <마음과 생각>으로 못 누리면, <몸>으로도 조금밖에 못 누린다.

19.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무의식 상태일 때는 누가 사랑을 해 주거나 진수성찬을 주어 먹어도 못 느끼고 못 누리니 거의 모른다. 이와 같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흐리멍덩하게 살면, 거의 ‘죽은 자의 삶’과 다름없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희락을 누리고 감사하고 감탄하며 간이 저리고 심장이 뛸 듯 기뻐하며 총명하게 느껴야 된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못 느끼고 못 누리는 삶은 발전이 없고, 사는 보람이 없다. 정신과 생각이 죽고 뇌세포가 굳어서 발바닥 군살같이 무디게 느끼기 때문이다.

20. <생각이 무딘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사랑해 주고, 영원한 지옥에 갈 운명을 이끌어 내어 천국을 거쳐 황금성 천국에 가게 해 줬는데도 감사 감격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삼위를 사랑하지 않고 흐리멍덩하게 산다. 이런 자들은 불에 빨강게 달군 쇠꼬챙이로 뇌를 지저야, 그제야 조금 뜨겁다고 하면서 일어나 걷기라도 하는 신앙이 된다. 섭리사에서 ‘아직 늙지도 않은 젊은이들’인데, ‘늙은 노인’같이 된 자들이 있다. 앞의 분이 되지 않는 자들을 보고, 자기들도 육성으로 치우쳐 뇌가 굳어서 그렇다. 해가 저서 추워질 때 뛰기 시작하니 후회하고 탄식하고 이를 갈면서 괴로움 속에 뛰다가, 인생 해가 진다.

21. <시대 말씀>을 그리 ‘뜨겁게’ 주는데도, <마음>이 ‘얼음장’이니, 미지근하게 들어간다. 그러니 추운 겨울의 미지근한 방과 같다.

22. <말씀을 뜨겁게 주는데도 별 반응이 없는 자들>은 뇌가 굳고 행하지 않아서 신앙의 잠을 자기 때문이다.

23. 아기같이 터치하면 소리를 내고 반응을 보여라. 그러지 않으면 뒤에서 잡아먹으려고 슬금슬금 기어오는 사나운 짐승과 마귀와 인사탄에게 물리고 잡아먹히게 된다.

24. 섭리사에 불려오면, 그날부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고 달려야 된다. 그런 자만 고개를 넘어 다른 세계에 처한다. 그런데 다 왔는데도 마치 뒤돌아 ‘불타는 소돔 땅’을 쳐다보듯, 뒤돌아보는 자들이 있다.

25. 재촉하면서 뛰고 달리며, 늘 주가 함께해 주고 기도해 주어 잘된다고 하며 감격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모’를 통해서 해 주시고, ‘세상’을 통해서 해 주시고, ‘감동’을 주며 해 주시고, ‘여건’을 틀어서 해 주신다.

26.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어떤 일이 와도 판단과 분별을 못 한다.

<2017년 6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가사>에 따라 ‘곡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2. 아무리 <좋은 가사>도 <곡>을 잘못 붙이면 내용이 죽는다.

3. <곡>은 ‘활력소’다.

4. <곡>은 '생기'다. '생명'이다.
5. <곡>은 '강도'다. '스릴'이다.
6. <곡>은 '묘기'다.
7. <곡>은 '가사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나타낸다.
8. <곡>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9. <곡>은 '소로 길'과도 같고 '대로'와도 같다.
10. <곡>은 '산맥'과도 같아서 오르고 내린다.
11. <곡>은 '흐르는 개울물'과도 같고 '계곡의 물'과도 같다.
12. <곡>은 '여러 형상과 모양의 집'과 같다.
13. <곡>은 '사람 몸의 선'과도 같고 '옷'과도 같다.
14. 아무리 <가사>가 좋아도 <곡>에 의해 노래가 좌우된다.
15. <시>는 '내용'이다. <노래>는 '곡'이다.
16. <가사>에 의해 '곡'이 흘러간다.
17. <몸>에 '옷'을 맞춰서 옷의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지듯이, <가사>에 의해 '곡'이 흘러간다.
18. <곡의 생명>은 '심정의 소리'다.
19. <가사>대로 <곡>도 오르내린다.
20. 사연을 '노래'로 읊어라.
21. <가사>를 지을 때는 '단어'를 합당하게 넣어라.
22. <곡>은 '흐름'이다. '내용'이다. '읊기'다.
23.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듯, <곡>도 흘러가야 된다.
24. 폭포수는 흘러야 작품이듯, <전체 곡>을 보고 폭포수같이 가창력을 내도록 음을 넣기도 해야 된다. 또한 기암절벽을 타듯, 스릴 있게 작사 작곡을 해야 된다. 또한 강이 흐르듯, 혹은 바다의 파도가 치듯 작사 작곡을 해야 된다. <곡>에 따라서 '계곡물'이 되기도 하고, '시냇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되기도 한다.
25. <승리하고 이룬 것>은 각종으로 표현해도 이치가 맞다.
26. <승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 역시 각종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27. <노래>는 '행한 사연'대로 짓고 불러야, 역사를 증명하고 역사에 남게 된다.

28. <거짓 없는 노래>가 부를수록 감격이고 감동이다.

<2017년 6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죄를 아는 자>가 ‘죄’를 지으면 때가 되면 짓값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니, 그로 인해 마음과 생각의 고통을 계속 받게 되고,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죄로 인해 하는 일이 안 되고, 늘 마음이 꺼리고 두렵고 힘든 상태에서 살게 된다.

2.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한 손해를 계속 받게 된다.

3. 그 날 행한 것을 매일 일기로 써야 잊지 않듯이, 매일 자기 죄와 꺼림을 회개해야 잊지 않고 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한다.

4. <자기가 생각할 때 죄가 되는 것>만 ‘죄’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생각할 때 죄가 되는 것>도 ‘죄’로 여겨야, 다 회개하여 육과 영이 죄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된다.

5.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의와 죄와 불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와 불의가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선과 의를 행해라. 그리고 죄와 불의는 회개하여라.

6.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이 막힌다. 또한 그만큼 ‘사탄’이 주관하고, 죄를 지은 만큼 ‘자책’이 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묶여서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

7. 매일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라.

8. 하나님과 주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고 행하기다.

9. <모르고 짓는 죄> 역시 ‘짓값’을 받는다. 다만 모를 뿐이다.

10. 가령 모르고 ‘헛길’을 갔다 하자. 헛길을 간 만큼 헛수고를 하고, 그 길에서 나올 때까지 대가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모르고 죄를 지어도 ‘무지의 대가’를 받는다.

11. 모르고 법을 범했어도 대가를 받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

12. <죄의 대가>는 ‘두 가지’로 받게 된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죄를 지은 행위’대로 대가를 받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어느 날 때가 되어 ‘형’이 내려지면 ‘근본의 모든 대가’를 받게 된다.

13. 죄는 ‘개인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행하여’ 짓게 되고, ‘상대가 잘못 가르쳐서’ 짓게 된다.

14. 상대가 잘못 가르쳐서 죄를 짓게 된다면 ‘잘못 가르친 자’도 죄의 대가를 받고, ‘잘못 배우고 행한 자’도 죄의 대가를 받는다.

15.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은 ‘주’가 고친다.

16.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다. ‘묶인 사슬을 벗어나는 것’이다.

17.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꽃이 저서’가 아니다. ‘생각이 높아져서’다.

18. 예전에는 큰 마을에서 떨어져서 저 멀리 산골짜기에 산다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도 좋아한다.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서’가 아니다. ‘고향을 개발하고 잘 만들어서’다.

19. 어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20. 생각의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잘 만들어야 된다.

21.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줘도 싫어한다.

22.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한다.

23. <정말 좋아해야 할 귀한 것>도 ‘자기 수준’이 낮으면, 안 좋아하게 된다.

24. <수준>이 높아도 ‘정말 좋아해야 할 귀한 것’을 안 좋아할 때도 있다. 이는 ‘자기 취향’도 있고 ‘분별’해서 알기 때문이다.

25. 같은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아주 싫어한다. ‘개성 차이’이기도 하고, ‘차원 차이’이기도 하다.

26. 자기 차원대로, 수준대로다. 혹은 자기 개성대로, 취향대로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생각하고 행하며 살면, 현재도 미래도 이상적으로 살게 된다.

<2017년 6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최고자>는 ‘최고’를 받고 ‘최고’를 만든다.

2. <최고>란 ‘자기 센터에서 최고다’ 함이고, ‘자기 차원의 세계에서 최고의 것을 받는다’ 함이다.

3. <기억력>은 역시 ‘뇌’다. ‘생각’이다.

4. 아무리 <흔>이 ‘꿈’에서 겪었어도 ‘육의 뇌의 생각’에 전달이 안 되면, 기억이 안 된다.

5. <꿈>은 ‘현실에 해당되는 것, 현실과 연결되는 것’을 꾸며 보이는 것이다.

6. 꿈에 운동장에서 그 순간만 축구를 했다. 내게 패스한 볼을 내가 늦어 못 받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 그다음 또 패스했는데 못 받고 내가 간격이 멀어서 쫓아갔으나 못 받았다. 계속 공격하는데 세 번째 내게 패스하여 내가 받고, 다음 사람에게 길게 공중 볼로 보내어 골대 앞으로 볼을 날라 쫓았다. 우리 편이 헤딩 해서 골인 시켰다. 그리고 잠에서 깼다. 깨 보니 ‘새벽 3시 15분 전’이었다. 일어나서 씻고 기도했다. 꿈을 푸니 두 번 패스 못 받은 것은 새벽기도 정한 시간 1시, 그리고 2시도 시간을 놓친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패스한 볼을 받아 골인 한 것은 3시에는 시간의 성공을 했다는 뜻이었다. <꿈>은 이같이 ‘현실과 연결’해서 푼다. 그 외에 다른 꿈들을 꿔어도 ‘육의 뇌 생각’에 전달이 안 되어 기억이 안 나고, ‘잠에서 깨기 전 마지막으로 꾸는 꿈’만 생각났다. <꿈>은 이같이 ‘현실에 해당되는 것’을 꾸며 보이는 것이 많다. 이것이 ‘꿈 계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받은 잠언>이 “최고자는 ‘최고의 것’을 받고 ‘최고’를 만든다.”였다. 새벽 1시에 기도했으면, ‘최고의 시간’을 얻고 ‘최고의 잠언’을 받고 있을 것이다. 그 후에 멋지게 패스하고 헤딩 하여 골인 했듯이, 결국 ‘최고’에 대한 잠언을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다.

7.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일등석’이 다르고 ‘일반석’이 다르듯, 어디를 가나 <자기 행위의 차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8. <꿈>은 잊었어도 <현실>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
9. <꿈>을 모르면 <현실>에서 받았어도 모른다.
10. 어느 때는 꿈에 <자기 혼>이 안 돌아다니고 '육의 뇌 속'에서 <생각>으로 그 같은 현상만 받을 때도 많다.
11. <자기 뇌 속의 생각으로 받은 것>도 있고, <자기 혼이 행한 것>도 있다.
12. <꿈>보다 <현실>이다. <꿈>에서 얻은 것을 <현실>에서 얻어야 '실체'가 된다.
13. <꿈>으로 '예시'한다. '계시'한다.
14. 축구장에서 선수들이 경기할 때 '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패스하는 자가 공을 주어 받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그때마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다.
15. (귀에 들리던 이명 소리가 지금은 안 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으로 소리가 난다.
16. 생각하면 소리가 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난다.
17. <생각>이 다른 데 빠져 있으면, 소리가 나도 안 들린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면, 소리가 나도 안 들리는 것이다.
18. 사람들은 과거를 겪어 봐서 특별한 것이 없으니, '새로운 것'을 찾는다. 고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전해 주어라.
19. (하나님) <생각>이나. <뇌>냐.
20. <뇌>가 있어도 '생각'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21. <너의 생각>이 하나님과 주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라. 그리함으로 <너의 행위>가 하나님과 주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라.
22. <생각>에 따라서 '옳은 삶'과 '그른 삶'이 좌우된다. 그에 따라 '영광'과 '멸망'으로 갈리게 된다.
23. 하나님과 주의 눈에서 벗어나면, 주의 혼과 영이 육신화되어 말없이 가서 책망하고 채찍질한다. 그러나 <육신>은 이를 모르고 곤고해한다. 그 <영>은 고통과 죄의 짐을 지고 절벽 길을 오른다. 이로 인해 <육신의 마음>이 그 영향을 받고 살게 된다. 그 <육신>이 계속 사망의 길로 가면, 그 <혼과 영>은 사망과 어둠에서 자기 육신이 행한 대로 각종 고통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육신>은 '패배한 삶'을 살게 된다. 천 리나 앞장서서 '제 갈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 육과 혼과 영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자들이 많다.
24. 인생들 저마다 의롭든, 불의하든 '제 갈 길'을 가느라,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한다. 자기 삶 살기 바쁘다.
25. 인생 잘못 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26. 사람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변질되지 않을까? 완전히 만들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권 안에 들어가야 육도 영도 변질되지 않는다.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1년의 시간을 계산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결국 시간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매일 할 일을 하면, 매일 4시간씩 시간이 모자라다. 1년의 시간이 많아도, 매일 할 일을 하니 1000시간이 모자라다. 벌써 1년의 반이 지나

갔다. 어서 빛같이 실천해라.

2. 1년의 시간을 다 계산하면 시간이 많고, 결국 시간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일을 안 하고 계산하니 시간이 남지, 할 일을 해 보고 계산하면 다르다.” 하셨다.

3. 하루 24시간도 취침 시간 4시간을 빼면 20시간이 남는다. 하루의 할 일을 안 한 상태에서 계산하면, 20시간이 남으니 시간이 많다. 그러나 하루의 할 일을 다 하고 밤에 시간을 보면 3~4시간이 모자라다. 결국 그 날 할 일을 다 못하고 끝나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일이 밀리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빛을 잡듯 빨리 실천해라.” 하셨다.

4. 일의 불이 붙어서 안 하면, 일을 해도 줄지도 않고 시간만 지나간다.

5. 하면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안 하면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진다.

6.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데, ‘공의 안에서 자기가 끌고 당기는 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서 행해라.

7.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두고 가만히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밀고 당겨라.

8.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같이 해 주신다. 고로 자기가 구하고 찾고 밀고 당기면서 행해야 된다.

9.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10. 하나님은 개인·민족·세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 자기가 밀고 당기는 대로 가신다.

11. 자기 돈을 가지고 쓰면 얻을 것을 얻고 돈이 소모되듯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라. 합당하면 하나님도 같이 해 주신다.

12. <자기 의>가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육계’에서 쓸 것을 못 쓰고 ‘영계’로 넘어간다.

13. <자기 의>를 가지고 ‘육계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 합당하게 써야 된다.

14.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제때 쓸 곳에 쓰고, 그로 인해 얻은 것을 사용하면서 또 돈을 벌어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 의>라는 ‘돈’도 제때 쓸 곳에 쓰고 그로 인해 얻고 또 의를 쌓아야 된다. <의>도 못 쓰면 가치가 없다.

15. <시간>이라는 ‘돈’도 아껴서 얻었으면 그때마다 쓸 데 써서 그로 인해 얻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야 유익이다. <시간>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날 그 시간은 ‘무가치’로 사라진다.

16. 새벽에도 일찍 일어났으면 그 시간에 글을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쓸 데 써야 그로 인해 얻고 유익이다. <시간>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시간은 지나 죽어 없어지고 영원히 사라진다.

17. 시간을 잡기다. 그리고 쓰기다. 그로 인해 얻기다.

18. 돈을 벌기다. 그리고 그때마다 때에 맞춰 쓰고 얻기다.

19. 만사 모든 것을 얻고 쓰기다.

20. 자기 몸이 어렸을 때는 크느라 못 썼다. 10~20년 컸으니 어서 써야 된다. 안 쓰면, 매일 시간이 가는 것만큼 늙는

다.

21. 실천의 능력과 지혜다.

22. 제시간에 할 일을 안 하면, <생각>이 변하고 <할 일>도 변해 버린다.

23. 하나님이 주신 <2017년 섭리사 꿈 계시>같이 어떤 일을 두고 100m 경주하듯 뛰어야 이기고 승리한다.

24. 100% 실천해야 된다. 그래야 뺏기지 않고 얻는다.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저마다 '웃는 얼굴 보이기'가 어렵다.

2.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보통 얼굴 표정'이 제일 많고, '인상 쓰는 표정'이 두 번째로 많다. 평상시에 '웃는 모습, 인자한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

3. 거울을 보고 연습하여 '웃는 얼굴'로 만들어야 된다. 그냥은 '웃는 얼굴, 편안한 얼굴'로 만들기 어렵다.

4. 살면서 '웃는 일, 편안한 일'이 있어야 자꾸 웃어서, 얼굴이 '웃는 얼굴, 편안한 얼굴'이 된다. 평소에 '웃는 일, 편안한 일'이 별로 없으니 아예 얼굴 근육이 굳어서 생활하고, 특별할 때나 '웃는 얼굴, 편안한 얼굴'이 된다.

5. 얼굴도 주름지듯 하면 펴기가 어렵다. 주름살을 펴는 마사지도 하면서 신경 써야 더 나아지듯, 웃는 얼굴과 편안한 얼굴로 만드는 것도 그러한 환경을 만들면서 신경 써야 된다. 삼위와 일체 되어 살면 '웃는 일, 편안한 일'이 많아진다.

6. 동물은 웃어도 사람들이 알기 어렵다. 동물들도 특별할 때는 간혹 웃을 때가 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웃는다.

7. 사람은 '웃는 얼굴, 기쁜 얼굴, 편안한 얼굴, 걱정스러운 얼굴, 화난 얼굴, 슬픈 얼굴' 등 모든 표정을 가장 잘 나타낸다.

8. <기뻐할 일>이 있어야 얼굴이 웃고 편한 표정을 하게 되고, <희망된 일>이 있어야 얼굴이 희망찬 표정을 하게 된다.

9. <마음>이 웃고 편해야 <얼굴>도 웃고 편안한 모습을 하며 살게 된다.

10. <마음>도 <얼굴>도 웃고 편안해야 <건강>도 알아보게 좋아진다.

11. 자주 화를 내고 자주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그런 표정으로 살면, <몸의 세포>도 죽거나 돌변하게 된다.

12. <몸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도 하면서 풀어 줘야 된다.

13. <얼굴>도 웃으면서 편안하게 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자주 인상을 쓰고 인상이 굳어 버린다. <몸 건강>도 계속 무리하고 힘들게 하면 표가 나게 건강을 잃게 된다.

14. 합당하게 해야 된다.

15. <잘 먹는 것>만이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너무 잘 먹으면 살이 많이 찌고, 위도 장도 무리가 되어 병들어서 죽는 자들이 지구 세상에 엄청나게 많다. 반면, 정상의 양만큼도 못 먹어서 병들어 죽는 자들도 너무 많다. 하나님은

를 적당하게 합당하게 하게 하셨다. <건강한 것>도, <잘되는 것>도 ‘적당하게 합당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16. 안 먹고 체중 감량을 하는 것보다, 먹을 것을 적당히 먹고 운동하여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17. 안 먹고 살 빼는 것만 목적하면 매일 각 지체로 가는 영양 공급이 끊어지니, 정상이 안 된다.

18. 적당한 양을 먹고 운동하면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

19. 신앙도 그러하다. 말씀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비만 신앙’이 되어 ‘신앙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

20. 말씀을 들었으면 그만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가르치면서 활동하고, 갖가지 신앙의 실천을 해야 된다.

21. 이 시대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활동량이 없어서 해 놓은 것이 없는 자들’은 ‘신앙 비만증’이 많다.

22. 꿈에 혼으로 보면, <자기 혼의 활동>을 통해서 ‘육의 모습’을 알게 된다.

23. <가지와 잎이 많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 주면, 마치 체중이 초과된 자가 체중을 적당히 감량하여 건강해진 것 같이 나무가 건강하게 되고 덩치도 좋아진다.

24. <자연성전의 나무들>도 ‘기둥과 덩치’는 작는데 ‘가지와 잎’만 무성한 것들이 있다. 이때는 체중 감량하듯 ‘가지치기’를 해 줘야 된다. <사람의 몸>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다.

25. <자연성전의 소나무들>은 체중 감량하듯 ‘가지치기’를 해 주었다. 고로 ‘기둥과 덩치’가 빨리 커진 것이다.

26. <사람>도 ‘나뭇잎같이 무성한 말’을 가지 치듯 감량시키고, ‘실천 쪽’에 무게를 두면 ‘공적의 덩치’가 커진다.

27. <정상>이 가장 좋고 편안하고 기쁘고 전진하게 된다.

28. 돼지를 키우는 주인만 ‘정상 체중’을 원하지 않고 ‘비만’이 되기를 원하고 키운다.

29. <정상인 자>라도 운동을 안 하고 활동이 부족하면, ‘체중’도 늘어나고 ‘몸’도 약해진다. 신앙도 그러하니, 말씀을 들었으면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갖가지 신앙의 실천’을 하여라.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생각>하면 ‘뇌’에 시동이 걸려서 ‘신경’이 움직이고, 그것이 ‘육으로 행하는 단계’가 되면 해진다.

2. <소변을 볼 때>가 되어서 ‘소변을 봐야지.’ 생각하면 자동으로 소변이 나오듯이, 모든 것도 <생각>하면 ‘뇌의 신경’이 내적으로 작동되어 진행되고, 2차로 ‘육’이 행하기만 하면 <육>이 움직여서 실행하게 된다.

3. <안 할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기’다. <생각>하면, ‘내적으로 진행’된다. 고로 ‘육’으로도 쉽게 하게 된다.

4. 의를 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것도 시발점은 ‘생각’이다. <생각>으로 좌우된다.

5. 육으로 행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하면, <뇌>가 ‘내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고로 ‘육’으로도 쉽게 하게 된다.

6. <육>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미워하고 헛된 공상을 하면서 별의별 것을 다 해 본다. 그런 뇌는 온전치 못하다. 마치 흰 종이에다 연필이나 펜이나 붓으로 마구 낙서해 놓고 칠해 놓은 것과 같다.

7. <뇌신경, 마음, 생각>은 마치 ‘환경’과 같다. <환경>도 마구 어지럽혀 놓으면 지저분하듯, <뇌>도 별의별 것들을 마구 생각하면 지저분해진다.

8.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정리된 환경’과 같고 ‘깨끗한 환경’과 같이 된다.

9. <육신>을 크게 보면 ‘뇌의 확대체’다. <환경>을 마구 만들면 볼 것이 없고 가치가 없듯이, <생각>을 불의하게 마구 쓰면 불의하고 가치 없는 뇌가 되듯이, <육신>도 불의하게 마구 쓰면 ‘불의한 자’가 된다. 의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잘 개발된 환경’같이 ‘가치 있는 자’가 된다.

10. <환경>은 첫째 타고나야 되고, 둘째 개발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과 육신의 지체>도 타고났기에 생각하고 행하며 살지만, 생각과 몸을 그냥 쓰면 제대로 쓸 수가 없다. <타고난 환경>도 ‘개발’하기에 따라 달라지듯이, <타고난 자기 생각과 지체>도 ‘개발’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11. <인간 스스로 개발하고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으로 ‘개발’하면, 자기 자신도, 환경도 ‘무한한 경지’로 개발하게 된다.

12.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차원이 높아도 - <육신>이 ‘땅에서 사는 차원’에서 살다가 죽고, - <영>도 ‘육신 차원’에 처하게 된다.

13. <절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 <육신>도 ‘하나님 주관권’에서 살게 되고, - <영>도 ‘하나님 주관권’에서 ‘천국의 영’으로 살게 된다.

14.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책을 써 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생활의 차원>에서 자기 좋은 대로 ‘말’을 하고 ‘책’을 써 냈다. 그 ‘말’을 듣고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 지식, 생활의 차원>에서 보고 들으니 그것을 좋아하고 거기에 적응하며 산다. 고로 ‘그 말과 책’이 ‘시대 역사’가 된다.

15. 이 시대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사는 자’가 적으니, 오히려 ‘불의’를 당연시하고 합리화하며 따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펴고 살게 하신다.

16.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가르치며 그대로 행하라고 해도, 그렇게 살려면 ‘자기 생각’대로 못 해서 힘드니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주 적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줘도 안 알아준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야 <영>이 ‘천국의 영’이 되어 하나님의 세계로 가고, <육>도 세상에서 ‘하나님 주관권’에 속해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17. <자기 차원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의 차이는 마치 ‘육이 잠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의 차이다.

18.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했다. 이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게 된다. <이 세상만 천국으로 누리고 사는 자>는 육신이 죽으면 끝나고, 영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기약 없이 고통을 받고 살게 된다.

19. 세상에서도 <육을 위해 열심히 살지 않는 자들>은 육이 굶주리고 평생 고통을 당한다. 이와 같이 <자기 육>이 ‘자기 영’을 위해 행하지 않으면, <육>이 선하게 온전히 살지 못한 죄값으로 <영>이 영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20. 사람은 ‘생각’대로 되고 ‘행위’대로 된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21. 크게만 이루었다고 뜻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뜻>을 이루면, 작게 이뤄도 이룬 것이 되어 끝난다.
22.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하신 뜻>을 그 시대 전체에 비해 만 분의 1밖에 안 따랐어도 - 절대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행했기에 '구약의 약속'을 이룬 것으로 끝내고, 그 터전 위에 세계적으로 '신약역사'를 펴 왔다.
23. 성약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전체에 비해 만 분의 1정도만 따라도 - 절대로 '시대 보낸 자'가 조건을 세워 행하며 그를 따라 행했기에 '신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룬 것이 되어, 인원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끝났다. 그 터전 위에 성약역사를 점점 펴 나가고 있다.
24. 임금의 아들이 절대적으로 왕의 조건을 세우고, 대상자가 있어서 찾고,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 인원수가 적어도 임금은 <조건이 되는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게 한다. 그 터전 위에서 점점 '새 역사'를 펴 나간다.
25. <이 시대 하나님의 성약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땅에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조건'을 세우니, 하나님이 그를 키우시고 그에게 시대 말씀을 주고 행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새 역사를 펴 나가신다.
26. <하나님의 절대 뜻, 이 시대를 향한 계획, 창조 목적의 휴거 역사>다. 이 <휴거 역사>는 '하나님의 핵의 역사'로서 '새 역사'에서만 펴 나간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상과 목적대로 행하며 산 자들>이 '그 뜻'을 이룬다. 이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데리고 사랑하며 살 신부 자격자들'이다.
27. <하나님의 역사>는 '최고의 뜻을 이룰 신부급 성약역사'와 그 밑의 '자녀급 신약역사', 그 밑의 '종급 구약역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가시며, 마지막에 최고의 뜻을 이루신다.
28. <천국의 조직과 질서>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존재한다. 첫째, '신부들이 거하는 황금성 세계'로서, 이 세계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된 신부들이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사는 세계다. 둘째, 그 밑에 '자녀급 세계'로서, 이 세계는 영원히 성삼위 앞에 자녀로서 사랑하며 사는 세계다. 셋째, 그 밑에 '사역자들의 세계'로서, 영원히 성삼위와 같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역자로서 기쁨을 이루며 사는 세계다. 천국의 어느 세계로 갈지는 '땅에서 자기 육의 삶'으로 결정된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땅에 보낸 자'가 다르고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다른데, <육신>이 '누구를 믿고 어떤 역사에서 어떤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영이 거하는 세계'가 달라진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 해도 '아기'를 취하면 사랑을 못 한다. 키워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시대마다 사명자를 보내어 역사를 키우시고, 크면 '사랑의 신부 역사'를 펴신다. <키워서 사랑의 목적을 이룰 역사>가 '마지막 성약역사'다. 하나님은 뜻에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하고 키우시고, 그 터전 위에 '구원자'를 보내어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끝에 <최고 사랑의 창조 목적 역사>를 이루신다.
29. 처음에 '과일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나무를 키워 꽃피우는 역사'를 펴고, 그다음에 '열매를 여는 과일 역사'를 펴서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구약>은 '나무 심는 역사'이고, <신약>은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역사'이고, <성약>은 '열매를 여는 역사'로서 이때 '최고 사랑의 창조 목적 역사'를 펴신다. 이 역사가 '성경에 예언된 휴거 역사'다. 이 역사는 신약역사가 다 끝나면 그때 시작하지 않고, 미리 시작한다. 마치 전부터 나무를 키우고 꽃을 피우게 하면서 열매를 열게 하듯이, 2000년 동안 신약역사를 펴시면서 신약역사가 끝나기 20~30년 전부터 새 역사를 키우시고, 때가 되면 <사랑의 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리고 '보낸 자가 태어난 지 70년'만에 비로소 <휴거 역사>를 이루시고, 전능하신 성자는 보낸 자의 영과 일체 되어 '예비된 신부들의 영'을 데리고 <천국 황금성>으로 떠나셨다. <천국 황금성>에서 '영'으로도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땅>에서 '육'으로도 보낸 자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까지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간다. 그러다 보낸 자의 육신이 죽으면, 보낸 자의 영과 함께 삼위를 모시고 '땅'에서 1000년이 되기까지 성약역사를 펴 나가며, 택한 자들을 찾아서 '땅의 혼인 잔치'를 펴 나가게 된다.

30.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을 키우고 가르친 후에, 그 사람이 크면 ‘사랑의 뜻’을 펴 나가도 동네 사람들은 모른다. 늙거나 늙어서 죽고, 또 더러는 자기와는 삶의 길이 다르니, 누가 그 길을 같이 가겠느냐. 이 세상에서도 누가 시집을 갔는지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모르고 살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다 모르고 산다. <보낸 자를 믿고 따르고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고 사는 자들>만 알고 간다.

31. <모르는 자들>은 봐도 근본을 모르고 쳐다보며 자기 사고로 생각하고 가고, <아는 자들>만 시대를 따라 행했다.

32. 애벌레가 때가 되어 조건을 갖추면, 나비가 되어 옛 허물을 벗고 날아간다. ‘시대 보낸 자’도 그러하다.

<2017년 6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나무의 가짓수가 많듯이, ‘노래 가사 표현의 가짓수’가 많다.

2. 여러 가지 종류의 옷같이, 여러 색깔의 옷같이 ‘노래 가사 표현’도 많고 많다.

3.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배합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노래’도 그러하다.

4. <노래 가사>도 ‘요리’이고, <곡>도 ‘요리’다.

5. <노래 가사>를 지을 때는 직설적인 표현도 있지만 ‘은은한 상징적인 표현’이 좋다.

6. 각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사항’이 달라진다. <노래 가사>도 그러하다.

7. 상대의 생각에 따라 ‘대함’도 ‘생각’도 달라야 된다. <노래>도 ‘시대’마다 달라야 된다. <원하는 것을 못 받았을 때>와 <받았을 때>는 ‘말’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전>과 <이룬 후>에는 ‘노래 가사’가 달라진다.

8. 상황 판단이다.

9. 먼저 정확히 봐야 정확한 상황을 알고 분별하게 되고, 제대로 실천하게 된다.

10. <꿈에 보여 준 것>에만 빠져서 그것만 생각하면 ‘꿈’으로 허무하게 끝난다. <꿈과 연결된 실체의 것>을 생각하고 ‘꿈에 보여 준 것’같이 만들고 ‘행할 것’을 행해야 ‘실체’를 얻게 된다.

11. <계시>는 ‘연결’이다.

12. 꿈에 ‘어떤 사람’을 보여 주며 계시했다고 해서, ‘실제 그 사람의 혼’이나 ‘육’이 아니다. <특성>을 깨달으라고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여 준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늘 ‘비유’를 들어 계시해 주신다.

13. <계시의 목적>은 ‘전달’이다. 고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보여 준다.

14. 꿈에 ‘나간 사람’을 보여 주면 그 <특성>을 알라고 하는 계시이지, ‘실제로 그 사람의 혼’이 아니다. <사탄과 악 쪽>을 깨달으라고 ‘나간 사람’을 보여 준 것이다. 이와 같이 <꿈>은 ‘현실과 연결’이다. 대부분 ‘현재의 자신’을 깨달으라고 보여 주는 계시가 많다.

15. <계시>는 누가 풀겠느냐. ‘주신 자’가 풀어 준다.

16. <꿈에 보인 자의 특성, 장점, 단점>을 자세히 보고 ‘자기’와 연결하여 깨달고 ‘자기가 기도한 것’과도 연결하여 깨달아라. 그 사람을 통해 ‘자기’와 연결하여 <특성>과 <장단점>을 깨달으라고, 꿈에 보여 준 것이다.

17. 어느 때는 ‘실제 혼과 영’을 보기도 한다. 이때는 실제 ‘영의 세계’에 갔을 때다.
18. 주를 만나고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성격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주를 떠난다. 그러나 지구 세상에는 ‘택한 자들’이 너무 많다.
19. 생각이 둔하고, 게으르고, 시대와 주의 가치를 모르고, 주 앞에 통명스럽고, 기회를 쥐도 하기는 하는데 화끈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섭리사에 와도 ‘휴거의 뜻’을 이루기는 힘들다. 이런 자들은 가다 보면 안 보인다.
20. 하나님은 할 때 화끈하게 행하시고 사랑에 열렬하시다.
21.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존재물’이 다른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못해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것을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귀하게 여긴다.
22. 좋아하는 대로 느끼고 기뻐하고 만족한다.
23. 어떤 사람은 <작은 개울>을 ‘강’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옹달샘>을 ‘개울이나 강’보다 더 좋아한다. <사람>도 그러하고, <환경>도 그러하고, <진리>도 그러하다.
24. <종교>도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섬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좋아하면, 결국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25.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이 있어도 더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택했으니, 그 실체대로 받는다.
26.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고 얻고 만족하며 산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것과 못한 것’이 있다. 결국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대로 받고,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자기가 택한 것의 존재대로 받게 된다. 이것이 ‘공의’다.
27.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하고 얻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법’에 벗어나면 때를 따라 양심 심판, 홍수 심판, 각종 재해 심판, 스스로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
28. 쪼개지 않고 섞으면, 헛갈리고 혼돈된다.
29. <사랑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를 해야지,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움’을 섞어서 말하면 ‘사랑 이야기’가 감소되고 헛갈리고 혼돈된다.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도 그러하니, ‘자기 말’을 섞지 말아라.
30. <시간을 뺀 것>은 마치 ‘방에 들어온 뱀을 잡았다가 놓친 것’과 같다. 다시 뱀을 잡듯이, 다시 ‘시간’을 잡아야 된다.
31. <시간>을 뺀다면 마치 ‘육조의 물’이 순간 빠지듯 ‘시간’이 순간 빠져나가고, <시간>을 제대로 쓰면 마치 ‘육조의 물’이 순간 받아지듯 ‘시간’이 순간 모아진다. ◎ 오늘 잠언을 전해 주기 전에 한 말을 한 번 더 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 새벽 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1시간 동안 <꿈에 본 계시>를 현실과 연결하여 생각하면서 <잠언>도 쓰고, 쓴 잠언을 <교정>하고, <‘일편단심 주님이여’ 노래>도 만들었다. 그냥 대충 보면 ‘일반 잠언’이다. 이런 말씀들은 그냥 보고 읽고 배우면 안 된다. <말씀>이 ‘복’을 좌우한다. 모두 귀히 보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해야 된다. 오늘도 선생은 어제 저녁부터 굶어 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받았다.

1. 사람이 살면서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의 뇌에 행할 능력을 넣고 창조하셨다. 고로 하면 해지고, 안 하면 하기 싫어서 안 해진다.
2. 또한 매일 수시로 씻도록, 씻는 능력을 뇌에 넣고 창조하셨다. 씻으면 그 능력이 나가고, 안 씻으면 그 능력이 매일 사라진다.
3. 사람은 하면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안 하면 ‘안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4.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하기 싫어하면 그것이 습관이 들어서 안 씻게 되고, 안 씻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편하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면, 자꾸 씻고 깨끗하게 해야 기쁘고 보람 있다.
5. 뇌는 생각하는 대로 해야 즐겁고 기쁘고 흥분된다.
6. <마음과 생각>은 ‘할 일’을 하기 싫어하면 안 해야 좋아하지만, <몸>은 다르다. <몸>이 ‘할 일’을 안 하면, 그로 인한 문제가 누적된다. 움직이지 않으니 신경 쪽이나 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병도 오고,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얻지 못하고 산다.
7. <마음과 생각>이 ‘안 씻는 것’을 좋아하면 안 씻고 가만히 있어야 기쁘다. 뇌는 마음먹고 생각하는 대로 해야 기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은 다르다. 씻어야 될 때 안 씻으면 얼굴과 몸에 노폐물이 쌓여 꿈꾸하고, 노폐물로 인해 땀구멍들이 막혀서 피부가 숨을 못 쉬게 되고, 머리는 가렵고, 이는 누렇게 되고 썩게 된다. 그러니 피부도 치아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마음과 생각>이 싫어한다고 <몸>도 함께 싫어하고 안 하면, <몸>은 ‘할 일을 해야 존재하는 생물’이라서 문제가 생긴다.
8. <마음과 생각>을 잡고, <몸>으로 자꾸 ‘할 일’을 해라. 자꾸 해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 이제 다른 방향의 잠언을 몇 개 더 전해 주겠습니다.
9. <4000년이나 기다렸던 새 역사>인데 준비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종교가 부패됨으로 인해 ‘오신 주’를 핍박하다가 죽이고 실패하고 끝났다. 이에 ‘주’가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고 만민을 살리셨다. 그리고 ‘주를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어 ‘천국 길’로 가게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2000년이나 기다린 새 역사>인데 준비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종교가 부패됨으로 인해 맞지 못하고 불신하여 실패하고 끝났다. 이에 ‘오신 주’가 영광의 길을 돌려서, 시대 십자가를 지고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했다. 그리함으로 살았다. 주가 대신 죽어 주고 만민을 살린 대신, ‘주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게 해 주셨다. 그리함으로 ‘영원한 뜻’을 펴게 해 주셨고, ‘황금성 천국 문’을 열게 해 주셨다.
10. 주가 ‘대신 희생’해 주어 <고난의 길>을 가니,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고난’을 받으셨다. ‘영광’ 대신 ‘만민을 살리는 길’을 택하여, 자신을 ‘만민을 살리는 데’ 쓰셨다.
11. 주는 희생하여 ‘사망길로 간 자들’을 살려 놓고, 후에 그들과 함께 ‘영광의 길’을 가신다.
12. 모두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행하는 것>에 따라서 ‘가는 길’이 갈라지고, ‘순위’가 결정되고, ‘차원’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된다.
13. <더 좋은 것> 앞에는 맥을 못 쓰고 빛을 잃게 된다. <주 머리로 살지 않은 자들>은 그 날에 ‘주’가 나타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숨을 것이다.
14. <주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들>은 ‘주’가 안 보여도 빛이 나고, ‘주’가 나타나도 빛이 난다.

1. <사람들이 아는 지혜>가 있고 <모르는 지혜>가 있다.
2. <자기만 깨닫는 지혜>는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다.
3. <사람들이 아는 지혜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그 차원을 생각하면 알게 된다.
4.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지혜의 생각’을 하시니,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
5. <밭에 감춰진 보화>는 ‘자기’만 알고 누리고 기뻐한다.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고 ‘자기’만 누리고 즐기고 사니, ‘자기만 아는 지혜’다.
6. <메시아>도 자기만 자기 사명을 아니 ‘자기만 아는 지혜’다.
7.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지혜’로 행하신다. 근본은 말을 안 하고 행하시니, 봐도 모른다.
8. 가령 어떤 사람이 명예, 권세,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하자.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고 자기만 누리면서 살아도 할 일을 다 하면서 산다. ‘자기만 아는 지혜의 삶’이다. 근본은 말 안 하니 모른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말을 안 하고도 할 일을 다 한다. ‘자기만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펴 가니 모른다.
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삼위만 아는 지혜’로 행하시며 <목적>을 이루신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안 보이지만 사람들을 통해 목적을 이루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몰라도 삼위는 뜻을 행하시며 목적을 이루신다. 메시아도 그러하다. 이것이 ‘자기만 아는 지혜’다.
11.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12. 저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자기만 아는 지혜’로 행한다. 자기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자기만 아는 지혜’로 행하니, 상대가 누구인지 몰라줘도 다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자기만 아는 지혜’로 뜻을 펴시며 목적을 이루신다.
13. 가령 어떤 외롭고 쓸쓸한 산골짜기에 때가 되면 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가 왕같이 되어,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밀려와서 그를 따르며 이상세계를 이룬다는 전설이 흐른다고 하자. 때가 되어 한 청년이 나타났고, 청중들이 그 산골짜기로 점점 밀려왔다. 그 청년이 ‘자기만 아는 지혜’로 행하면, 따르는 자들이 아무도 근본을 몰라도 목적을 이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펴 오셨다.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것이 메시아를 보내어 목적을 이루고 휴거를 이룬다는 것이었다.” 하셨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하면, 다 했어도 모른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뤘어도 모른다. 그저 ‘일반 사람들이 하는 하나의 일’이었다고만 안다. 고로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수십 년간 역사해 오시고, 다 하고 나서 사람들 중 믿고 인정하는 자만 스스로 알게 하신다.
14. <자기만 아는 지혜>로 방법을 달리하며 ‘자기 할 일’을 다 하니, 사람들은 모른다.
15. 메시아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을 안 하고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 다 행한다. 사람들이 근본을 몰라도 ‘방법’을 달리하여 ‘자기만이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으니, 주인공은 만족하며 산다.
16. 가령 댐에 물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물을 다 빼내는 일’이라고 하자. 때가 되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을 다 뺀다고 하면서 수문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오셨다. 물은 다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만 아는 지혜’로 ‘사람들’을 통해 행하셨다.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누가 알아주나 몰라주나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휴거>도 사람들이 아나 모르나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행하셨다. 다 하시고,

끝에 ‘그 날’만 말씀하셨다.

17. 하나님은 ‘그가 보낸 사랑하는 자’에게만 말씀하시어 행하게 하시고, 그 뜻을 전하여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 시대가 모르고 사람들이 몰라도 주인은 ‘목적과 뜻’을 다 이루었다.

18. 하나님은 처음에 ‘보낸 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기만 아는 지혜’로 착오 없이 행하시어, <6000년 동안 기다린 휴거>를 위해 <시대 하나님의 전>을 만드셨다. 다 만들고 나서야 왜 만들었는지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셨다. 사람들은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때서야 알게 된다.

19.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지혜’를 때로는 ‘세상에 보낸 자신의 육, 구원자’에게만 말씀하신다.

20. 지난 40~70년 동안 겪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다 해 놓고 말씀하시고, 끝나고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그리하신다.

21. <받는 자>밖에 모른다.

22. <자기만 아는 지혜의 맛과 기쁨>이다.

23. <자기가 계획한 목적지 차원에 못 올라가고 있는 자>는 ‘자기만 아는 지혜’를 깨닫게 되면 올라간다. 평소에 조금씩 나눠서 공적을 쌓고 올라가는 것이다.

24. 가령 항상 30개가 모자라서 ‘다음 차원’으로 못 올라갔다 하자. 수년간 했지만 ‘다음 차원’으로 못 올라갔다. 그래서 ‘그동안 모자란 것을 채우는 삶’을 살라고 했다. 그러나 결국 못 하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25.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했는데 못 했다 하자. 그 대신 지혜롭게 ‘다른 것’을 했으면,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지혜’로 했다고 인정도 해 주시고, 그다음 코스로 가게 허락해 주신다.

26.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할수록 더 해가 되고 안 된다.

<2017년 6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때>가 되면 ‘지구 세상의 한 명’이라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

2.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자기 때>에 ‘자기 일’이 오고 간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여 번개같이 실천해라.

3. 하찮은 음료수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부패되어 꺼려져서 안 먹는다.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깨끗이 행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미 유효기간이 10~20년씩 지나고 끝난 과거 구역사의 것’을 먹고 마시며 잔치하겠느냐. 옛것을 장사해라. 옛것은 유효기간이 지났다.

4. <구역사의 유효기간>은 끝난 지 오래됐다. <섭리사 안에서도 지난 때에 하고 끝난 것들>이 많다. <지난날 섭리사의 것>과 <지난날 방법>도 유효기간이 지났다. 그것은 그때 행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어야 했다. 이제는 ‘새 것’이 왔다. 저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라. <새 방법, 새 것>을 받고 새롭게 하여라. 섭리사 노래도, 섭리사 예술 세계도, 선교 방법도, 자기 사명을 하는 방법도, 자기 일을 하는 방법도 그러하다.

5. <정치>도 새로운 정권으로 바뀌니, 모두 새롭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하다. 이제 ‘구역사의 때’가 지나고, ‘새 역사’가 왔다. 새 역사 중에서도 ‘지난 역사’를 지나 ‘새로운 때’를 맞았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 위해 ‘썩은 것’을 심판하신다. 정치, 경제, 종교 모두 때가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로써 ‘옛것’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하신다. 모두 ‘유효기간이 지난 옛것’을 장사 지내라. ‘새것’을 받아라.

6. <새로운 때>가 되면 ‘새것’을 밝힌다.

7. 자연성전의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도 ‘첫 번째 것의 상대가 되는 한 쌍, 한 틀의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가 또 있어서 찾아보라고 했다. <주체>가 있으면 <대상>이 있다. <모두 알고 있는 첫 번째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 말고 <첫 번째 것의 상대가 되는 것으로 새롭게 또 밝히는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다. 그런데 아는 자들이 없었다. 모두 자연성전에 가서 보고 만져 본 바위인데도 관심을 안 가지니 모른다. 찾지 않으니 모른다. 설교했어도 연결하지 않으니 모른다. 고로 ‘옛것’만 인식하고 산다. <폭포수>도 이제 ‘그 짝, 상대가 되는 새것’을 만들었다. <새것>이 좋으나, <옛것>이 좋으나. <알파바위의 소나무>도 ‘후에 밝힌 새것’이 더 크고 웅장하다. 역사도 <옛 역사>보다 <새 역사>가 더 크다. 구약보다 신약이 크고, 신약보다 성약이 더 크다.

8. 역사가 발달되니 <새 역사>는 옛 역사보다 차원도 높고, 질도 좋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9. <인생 사는 재미와 희망>은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을 향해 가는 삶의 맛’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만 잡고 인생 다 늙어 간다.

10. <하루>도 그럭저럭 얼렁뚱땅 의미 없이 보내며 지체하듯, <인생 일생>도 그렇게 보낸다. 순간순간 판단하지 못하고 지체하니 ‘그 순간들’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되어 인생이 가 버린다.

11. 20대, 동쪽에 해가 있을 때 서성대던 자는 40~50대가 돼서 서산마루에 해가 기울 때까지도 서성대고 산다. <인생 사는 것>을 그리 가르쳐 줬는데도, 그때 순간 판단하지 못하고 안 해서다. 값진 조건을 지불하고 휴거시켜 줬는데, 게으르고 가치를 모르니 육적으로 살고 주와 교통도 안 하고 산다. 그러다 휴거를 뺏기고 무슨 희망으로 살려고 하느냐. <휴거된 자>는 ‘자기 영’과 ‘주’ 함께 더욱 열을 내며 행한다. 그리함으로 얻고, 받고, 그 급으로 살아간다.

12. 섭리사의 어떤 목사는 한 운동선수에게 시대 복음을 전해 주라고 했더니, 1년 반이 다 가도록 자기 이야기만 했다. 이는 <주>를 증거하고 <시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식하며, 자기 목적의 대화만 해서다. 결국 그 달란트를 빼앗아 ‘하는 자’에게 준다. <주>를 부끄러워하여 증거하지 못하고 <시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여 전하지 못하니, <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해 줄 수 없다. 10대라도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혜롭게 <시대 복음>을 전하니, 상대가 깨닫고 전도되어 소식을 전해 온다. <사도 시대 때> 모두 일어나 부끄러움 없이 ‘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니, 생명들이 밀려왔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선거 전에 유세를 할 때 잘 증거해 줘야 당선된다. 숨기고 부끄러워하면 증거가 안 되어 당선도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어도 사도들이 “너희 때문에 주가 십자가를 지셨다. 메시아가 만민의 죄를 대속한 것이 부끄럽나? 메시아를 모르고 미련하게 대한 자가 부끄럽나?”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며 <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13. <모르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막고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시대 죄인’이고, 그들이 ‘부끄럽고 무지한 짓’을 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신 주>는 생명을 구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인류의 모두를 위해 그리하셨다. 메시아의 희생과 행함을 2000년 동안 증거하니,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모두 알게 되었다.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 메시아가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가 2000년 동안 각종 전쟁과 미움과 싸움이 되었다. <신약 복음>이 이웃 나라 ‘로마’로 옮겨지고, 이어서 ‘세계’로 옮겨져 <신약역사>를 이루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뜻을 펴셨던 나라>는 ‘신약 복음을 시작한 나라’가 되었고, <신약의 큰 역사>는 ‘로마’를 중심으로 퍼 나가기 시작하면서 ‘세계’로 퍼져 나갔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어디서든지 자기 삶을 귀하게 살지 않으면 손해다.

2. 갇힌 자가 갇힌 곳에서 나가서 그때부터 삶을 잘 살면 손해다. 갇힌 곳에서도 귀하게 살아야 된다.

3. 좋을 때만 귀하게 살면 손해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자기 삶을 귀하게 살아야 된다.

4.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뛰고 달려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5. <바빠 뛰는 자>에게 시간은 더 빨리 간다.
6. <할 일 없이 노는 자>에게 시간은 지루하게 안 간다.
7. <목표를 놓고 뛰는 자>에게 시간은 너무 빨리 간다.
8. <바빠 뛰지 않는 자>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모른다.
9. 갇혀 있으면, 시간을 집중해서 쓰니 10배 많이 쓴다.
10.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시간’을 맞춰 가신다. <때>를 정해 놓고 <때>에 맞춰 가야 되기 때문이다. <예정된 때와 시간>을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이뤄야 되기에, 삼위일체는 ‘시간’을 따라서 가신다. <시간을 다스리며 뛰는 자>만 삼위일체를 따라간다.
11. 절대자 삼위일체는 절대 ‘정한 시간’을 맞춰 떠나신다.
12. 삼위일체는 항상 ‘시간에 맞춰 떠나신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해라.
13. 비행기도, 고속 열차도 ‘시간’을 따라 떠나듯이, 하나님도 ‘초침’도 안 어기고 ‘시간’을 따라 떠나신다.
14.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때와 시간’을 따라 나타나고 떠난다.
15. <때가 안 맞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된 자’다.
16. 신약의 때가 가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났다. 이 때에 맞춰 미리 새 역사를 준비하고 시대 복음을 전함으로 인생들을 구원시켜 ‘군중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
17.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다. <때>를 정하시고 ‘때’에 맞춰 ‘계절’같이 행하신다. <때>가 되면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에 따른 일들’을 다 실행하신다.
18. 하나님은 항상 ‘그 때의 전’부터 미리 행하시어 ‘정한 때’에 맞춰 행하신다.
19.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면 ‘시간’을 다 맞춰서 행하시지만, ‘사람’을 데리고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사람이 실천해야 되니, 그 전부터 준비했다가 ‘정한 때’를 맞춰 행하신다.
20. <하나님이 보낸 자>가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서도 ‘제때, 제시간’에 따라 늦지 않게 실행한다.
21. <하나님이 옥으로 쓰는 몸>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몸’을 쓰고 행하시니 ‘시간’을 지킨다.
22. <하나님이 보낸 자>는 ‘이것’으로 분별하나니, 곧 ‘때를 맞춰 행하는 것’을 보고 분별한다.
23. <신앙의 도둑과 강도, 이단>은 ‘자기 때’에 태어나 ‘자기 때’를 맞춰 행하니, 절대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춘다.
24. 하나님은 <때>를 맞춰 ‘메시아’를 보내시니, <때>만 따져 봐도 누구인지 안다.

25. <세례 요한 사명자>는 항상 메시아보다 일찍 온다.

26. <세례 요한 사명자들>도 ‘메시아를 증거’하지 못하면, 사명을 못 한 고로 ‘형벌의 세계’로 간다.

27.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를 증거한다.

28.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거의 모른다. 메시아가 와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여, ‘깨닫고 따른 자들’만 메시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9. 자기는 참여를 못 해서 몰라도 ‘때’를 보아라. 하나님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때’를 맞춰 다 행하셨다. <그 일에 참여하여 아는 자>만 알고 끝났다. <모르는 자> 중심이 아니고 <아는 자> 중심이다. 몇 명이 됐든지 ‘아는 자’만 알고 행하고 끝났다.

30.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은 1초도 안 어기고 실행하셨다. ‘메시아를 알고 따르는 자들’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떠난 것이다.

31. <그 일의 주인공>만은 ‘그 일의 시간’을 꼭 지킨다. 그들만 아는 것이다.

32. <행한 자>는 말 안 해도 ‘행한 것’이 증거가 되고 ‘역사’가 증거가 되어, 후손들이 따라서 행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제시간>을 지키면 ‘그 시간에 맞는 차원의 말씀’을 주신다.

2. <제시간>을 지키면 ‘그 시간에 맞는 차원의 깨달음’을 주신다.

3. <과일>도 ‘제철’에 나타나서 먹듯이, <환경>도 ‘제때’에 나타나서 보듯이, <하나님의 때>도 ‘제때’를 지키면 ‘그 때에 해당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섭리역사적으로도 만나고 보게 된다.

4. 동물들은 ‘때’를 맞춰 거기에 나타나서 물을 먹고 가고, 풀을 뜯어 먹고 가고, 사냥을 하고 간다. <때>를 맞춰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만나고 본다.

5. 일출을 보려면, 일출 시간 전에 일어나서 산 정상이나 바닷가에 가서 기다려야 ‘제때 제대로’ 일출을 볼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일출의 광경과 현상’을 못 본다. 예배 시간이나 새벽기도 시간도 ‘제때’를 지키려면,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을 못 지켜서 일출을 제대로 못 보듯이,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말씀’도 제대로 안 들리고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의 대화’도 흐릿하다.

6. 하나님은 절대 ‘때’를 따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신다. ◎ 새벽기도 시간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1시부터 잠언을 쓰기 시작하여 ‘잠언 38개’를 받았다. (32번까지는 어제 전해 주었고, 33번부터 오늘 전해 주고 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 50분이다.

7. <하나님의 때>를 지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자기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안다. <때>를 안 지키면 ‘낮은 차원의 것’만 본다.

8. 가령 <첫 차 시간을 안 지킨 자>는 ‘두 번째 차’를 보고 타고, 완행으로 가며 행한다.

9. 영계도 육계도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행한다.

10. 꿈도 ‘초저녁 꿈’과 ‘새벽 꿈’이 다르다.

11. 한 꿈을 꿔는데, 큰 건물이 있었고 한 의사가 나를 데리고 건물 맨 아래 지하로 데리고 가서 조용하고 깨끗한 방에 눕혀 놓고 치료를 했다. 그러고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했다. 그곳은 ‘거할 곳’이 아니고 ‘순간 사용하고 나올 곳’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방에서 나와 걸어가는데, 그 방 주인이 수행원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끝에 따라가는 사람을 불러서 묻기를 “저 방 주인이 누구냐?” 하니, “큰사람입니다. 저곳은 그가 사는 곳입니다.” 했다. 내가 빨리 나오기를 잘했지, 늦게 나왔으면 그 방 주인이 왜 자기 방에 있었느냐고 하며 따져 큰일 날 뻔했다. <속히 행하라>는 꿈 계시였다. 꿈 계시에 따라서 새벽 1시에 맞춰 기도하니, 현실에서도 꿈같이 순간순간 자리를 이동하면서 ‘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두 이와 같으니, ‘자기 때’를 지켜 행하여라.

12. <때>를 지켜야 얻는다.

13. <때>가 되면 아무리 바빠도 ‘거기에 해당되는 때’를 지켜야 ‘기적’이 일어난다.

14. <때를 지키는 자>는 ‘음식이 제맛이 날 때 먹는 자’와 같아서, 인생 맛있게 산다.

15. 하나님 앞에서 ‘때’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때를 지키는 자’를 데리고 ‘뜻’을 이루신다.

16. 하나님은 ‘구시대에 있는 자들이 때를 지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구시대에 해당되는 일들이나 하여라.” 하신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할 일을 해야 된다.

17. <하늘 신부가 된 자들>은 ‘신부에 해당되는 때’를 지켜야 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6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8. 바쁠 때라도 급한 대로 ‘씨’라도 뿌려 놓으면, 후에 가 보면 싹이 나서 자라고 있다. 후에 시간을 두고 가꾸어 <때>가 되면 ‘열매’가 열려서 ‘씨를 뿌린 자의 것’이 된다.

19. <때>는 시간이 많다고 지키는 것도 아니다. 시간이 없으면, 급하게라도 지키면 된다.

20. <때를 지킨 자>는 ‘희망의 사람’이다. 때가 오면 거둔다.

21. <그 일의 순간의 때>가 있다. 그때만 바쁘다. 그 ‘절정기의 때’를 지키면, 여유가 있다.

22. <그 일의 순간의 때>가 있다. 그때 날면서 때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후에는 여유가 있다.

23. <때를 잡을 때>만 급하다. 바쁘다. <그때>를 잡으면 여유가 있다.

24. 사냥할 때 ‘도망가는 짐승을 잡을 때’까지 숨 가쁘게 실천이다. 잡은 후에는 여유가 있다. <순간의 때>다. ‘순간 빛같이 실천’해라.

25. <시대의 때를 지키지 못한 자들>은 ‘청춘’이 갔다.

26. <때>는 ‘자기 인생’과 같이 간다.

27. <때> 늦으면 ‘인생’이 가서 잡을 수도 없다.

28. <인생>이 가고 ‘때’를 잡으면, <때>도 늙어서 힘이 없다.

29. <산짐승>도 ‘때’ 지나서 잡으니, 늙어서 살도 없고 뼈만 앙상하고 이빨은 다 썩었는데 입을 벌리고 물려고 한다
<생명>도 ‘때’ 지나고 잡으니, 적이 되어 겨루고 사망에서 그 백성이 되어 산다.
30. <때> 지나고 산머루와 다래를 따러 가니, 모두 말라서 껍질만 남아 있어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다. <시대의 때>도
그러하다.
31. 비바람이 쳐도 <그때>가 ‘제때’다. <그때> 목숨 다해 미쳐서 해야 된다.
32. <때> 지나면 ‘밤’이 온다. 그때는 보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
33. 하나님은 모두 제때 나타나고 가도록, 만물의 이치를 두고 창조하셨다.
34. 이단도 잡초처럼 무성하다가 ‘때’ 지나면 사라진다. 전에 활동하던 이단들을 보아라. 때 지나서 가을이 되니 잎이
지고 사라졌다.
35. 사탄들도 ‘자기 때’가 지나면, 있으라고 잡아도 사라진다.
36. <때>가 되면 만나니, 걱정 말고 ‘지금 제 할 일’이나 해라. ◎ 여기까지 잠언을 쓰니, 새벽 2시 50분이 되었다.
다리와 몸이 저려서 5분 동안 잠깐 운동했다. <다음에 오를 봉>은 ‘기도 봉’이다. (이 잠언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전해 주고 있습니다.)
37. 때가 되면 ‘소나기’가 오고, 때 지나면 ‘이슬비’도 안 온다.
38. 제때 하면 쉽다.
39. <때> 지나서 도랑물이 말랐는데 빨래하고 씻으려면, 샘을 파서 해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청춘의 때>도 지
나면 ‘청춘의 물’이 말라서 해도 잘 안 된다.
40. 줄 때 해라.
41. 미련한 자는 ‘때’ 지나고 열 내서 한다. 고로 행해도 ‘잡은 것’이 없고 ‘얻은 것’이 없다. 수고만 했다.
42. <때> 지나면 나무에서도 물이 안 나오고, 구멍만 크게 뚫려 있다. 미련한 자는 나무가 죽었다고 베 버린다. <때>
가 오면 또 물이 나오는데, <때>를 모르니 ‘때’가 아닐 때만 행하여 얻지도 못하고 헛수고한다.
43. 악인들은 ‘때’를 지킬 수가 없다. ‘악에 속한 시간의 톱니바퀴 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44.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불신한 자들>은 ‘불신의 때’만 지켜 행한다.
45.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자>는 갈매기가 오기 전에 조개를 까서 껍데기만 남겨 놓고 간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한 갈매기들>이 와서 껍데기만 주우며 기뻐하면서 날아간다.
46. <때를 지키는 자>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때의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때’를 따라 떠나간다.
47. <때를 지키지 않는 자>는 ‘기다리는 자’가 벌써 왔다 갔는지 모르고, 계속 기다린다.
48. <때>를 못 지키면 ‘땃물’ 속에서 목욕한다.

49. <때를 지켰을 때 얻은 것>과 <때를 안 지켰을 때 얻은 것>의 차이는 ‘얻은 것’과 ‘못 얻은 것’의 차이이다.

<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을 두고 일을 하다 보니, 심리적이지만 시간이 3배나 빨리 간다.
2. 한 달이라는 시간도 목적을 두고 행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3. 놀면, 시간이 3배나 빨리 간다. 일하면, 시간이 7배나 빨리 간다.
4. 한 가지만 하려니 시간이 잘 안 가고 지루하다면 그 시간에 세 가지, 네 가지를 해라. 그러면 쪼개서 하니 시간이 가볍게 날아간다.
5. <돈>을 잘 쓰는 자는 성공하듯이, <시간>을 잘 쓰는 자는 성공한다.
6. 매일 1분이라도 표 나게 써라.
7. 시간을 표 나게 투자하면, 그로 인해 후에 2배, 10배 얻게 된다.
8. <시간을 가치 있게 귀히 쓰는 자>만 ‘시간’이 귀한지 안다.
9. 시간을 ‘실패 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쓰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시간을 황금 같이 가치 있게 쓰게 된다.
10.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써라. 자기 생명, 형제들의 생명이다.
11. <시간을 최고로 귀히 쓴 자>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쓴 자’다. <그보다 100만 배 더 시간을 귀히 쓴 자>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살리는 데 쓴 자’다.
12. 시간을 막 쓰는 자는 청춘의 시간 10년, 20년을 막 쓴다.
13. 연장과 기계 등 장비를 만들어서 쓰면, 사람이 맨손과 맨몸으로 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크고 많은 일을 하게 된다. 고로 시간도 그만큼 벌게 된다.
14. 이와 같이 시간을 ‘자기를 만드는 데’ 써라. 자기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쓰면, 같은 시간도 10배, 20배, 100배 더 가치 있게 많이 쓰게 된다.
15. 배워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우고 알고 시간을 쓰면, 아니까 적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양의 일을 순식간에 해낸다. 모르면 1년, 10년이 가도 몰라서 못 한다.
16. 첫째 육신이 기본으로 배우고, 둘째 세상 지식도 배우고, 셋째 구원자를 통해 삼위께 배우고, 넷째 기도하면서 배워라. 구원자를 통해 삼위께 배우고 기도하면서 배우면, ‘인간 차원 이상’을 알게 되니 ‘신’같이 알고 산다. 아니까, 적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큰일을 한다. 그러면 인생 100년 짧다고 하나, 실상 1000년 산 격이 된다.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몸부림쳐 했는데도 차원이 낮아진 자가 있다. 오르지 않고 내려가면서 몸부림쳤기 때문이다.
2. 신앙 길은 ‘올라가는 길’도 힘들고 ‘내려가는 길’도 힘들다.

3. 힘들어도 <올라가는 자>가 산을 넘어서 '탄 세계'로 가게 된다.
4. 내려가는 수고에서 조금만 더 수고하면, 되돌아서 올라가게 된다.
5. 내려가는 것도 힘드니, 그 수고를 '오르는 것'에 투자해라.
6. 매일 오르기다. 그러다 보면 홀연히 '정점'에 올라간다.
7. 매일 작은 산을 하나씩 오르는 신앙의 길이다.
8.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여 '제자리에서 사는 자'도 있다.
9.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이 힘들다. 차라리 매일 올라가라.
10. 주와 일체 되지 않으면, 올라가서 '정점'에 가도 홀로 서 있다.
11. 구원도 휴거도 '주와 일체 되어 주와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다. 자기 스스로 하거나, 전도자나 지체끼리 하나 돼서는 아무도 '정상'이 되지 못한다. 삼위일체와 하나다. 주와 하나다.
12. 가령 주를 떠나서 삼위일체와 하나 된다 하자. 이는 마치 한 여자가 결혼해서 시부모와는 하나 됐는데 남편과는 떨어져서 사는 자와 같다. <정상>을 벗어나면 곤고하고, 결국 그 삶을 상실하게 된다.
13.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서다. <주와 일체 된 것>이 '휴거'이며, <주와 일체 된 곳>이 '이상세계'다. <주와 일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14. <주와 일체 되어 자기 할 일을 하는 자>는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자'다.
15. 하루를 살아도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을 우선권으로 하여라. 그다음에 나머지를 절대적으로 하여라. 이런 자가 '영적인 삶으로 오르는 자'다.
16. 항상 '속의 영적인 것' 먼저 만들고, 그다음 '겉의 육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다.
17. <육적인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올라가면, <육>이 더 형성되고 <영>은 그다음으로 형성되었기에 <영>이 <육>을 따라 행하니, 희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이시다. <영이신 삼위일체>가 <육인 인간들>을 따라 행하면, 제대로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 육과 영도 그러하다. <육>이 '영'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영>이 '자기 육'을 다스리며 '자기 육'을 쓰고 하게 만들어라.
19. 똑같이 뛰고 똑같이 수고했는데 <육적인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것을 한 자>는 '삶이 육적으로 형성'된다.
20. <육>은 결국 없어질 '소모품 같은 삶'이다. <영>이 자기 육신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받아서 영원히 존재한다. 고로 '영의 삶'이 먼저 형성되어 '육의 삶'을 다스려야 된다.
21. 기도 먼저 하고 밥 먹기, 새벽에 영적인 시간 먼저 보내고 하루를 시작하며 육적인 일 하기다.
22. 주 먼저 만나고 친구 만나기다. 친구 먼저 만나고 주를 만나니, 만나도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만 탄다.

23. 똑같이 수고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먼저 만나야 ‘기본’이 다져지고 ‘영적인 자’가 된다.

24. 월명동에 큰 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보아라. <육에 속한 것>은 ‘밑돌’이고, <영에 속한 것>은 ‘위에 세운 돌’이다. 그게 정상이다. (화면) 이와 같이 <육적인 것>은 ‘밑돌’로 하고, <영적인 것>을 ‘위’에 세워야 된다. <세울 것>을 밑에 두고, <밑돌>을 세우니까 항상 작품이 못 된다.

25. 신앙의 세계에서도 <육에 속한 자>는 ‘보다 육적인 것’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

26. 즉시 순서를 바꿔라. 안 바꾸면 ‘영적인 곤고함’이 매일 지속된다. 바꾸면, 즉시 <영>이 <육>을 쓰고 다니면서 행한다.

27. <육>을 앞세워서 행하니, 생각이 낮고 육성으로 하게 된다. 그러니 ‘얻는 것’이 적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또 해 주겠습니다.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28.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육적>으로 하니, 못 이긴다. <영적>으로 해야 이긴다.

29. 육성과 불의와 싸울 때도 <육적>으로 하면, 못 이긴다. <영적>으로 자기 생각을 다스리면서 해야 이긴다.

30. 매일 신령한 기도를 하여 항상 ‘영적인 것’ 먼저 하여라. 그래야 삼위와 주와 일체 된다.

31. <육적 신앙을 하는 자>는 ‘구시대 기성에 속한 신앙을 하는 자’다.

32. <구시대 방법>은 ‘육성에 속한 신앙의 삶’이다. 새 시대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33. <육성이 강한 자>가 ‘육적 신앙’을 한다.

34. <구약>은 ‘육적 시대’이니, ‘육신에 속한 율법’을 줬다. <신약>은 ‘보다 영적 시대’이니, ‘영에 속한 마음의 법’을 줬다. 고로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했다. <성약>은 ‘영적 시대’로서 ‘영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영’을 중심으로 해서 ‘영’을 휴거시켰다. 영과 혼 우선이다.

35. 당장 ‘영적’으로 바꾸면, <주>와 <영>이 자기를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와 일체’ 된다.

36. <육>은 ‘영에 속한 일’을 못 한다. <영>은 ‘영의 세계’에 가지만 <육>은 못 간다. 다만 <육>은 ‘영이 영계의 높은 곳에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육>이 깊이 기도하고 영적인 것에 속해 행해 줘야 <영>이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다.

37. <영>은 ‘육에 관한 일’은 못 하지만, <영>이 ‘육신’을 쓰고 하면 <육>이 차원 높게 행하게 된다.

38.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다음 것>이 제대로 된다.

39. <영>만이 ‘먼저 할 것’을 먼저 한다.

40. <먼저 할 것>은 ‘영에 속한 일’이다. 고로 <영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먼저 할 것, 영적인 것’을 먼저 한다.

41. 기도 먼저 하고 할 일을 하면, 기도할 때 깨닫고 알게 된다.

42. <지혜>는 ‘판단’이다. <먼저 할 것, 영적인 것>을 먼저 하여라.
43. <영적인 지혜를 받은 자>는 절대 ‘영적인 일’ 먼저 한다.
44. <영적인 것>을 먼저 하면, 바로 ‘먼저 한 것의 효력’을 얻는다.
45. <육적인 것>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 시간이 안 맞아서 얻지를 못한다.
46. 옛것을 장사해라.
47. <영적인 것을 먼저 하지 않는 자>는 ‘시체를 방에 놓고 사는 자’와 같다. 고로 못 견디고 스스로 고하게 된다.
48. 성령은 ‘육에 속한 자’와 등지고 사신다. 성령은 ‘영’이시니 ‘영’으로 대하신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도 ‘육’이 무뎌서 못 받는다.
49. <육>으로 부르면 ‘주’와도 ‘성령’과도 안 통한다. <육>이 신령하게 하고 ‘영’으로 불러 봐라. 이것이 ‘영’으로 부르는 것이다.
50. <주>는 ‘육체를 가진 자’이니, ‘육’으로도 통하고 ‘그가 주는 말씀’을 받으면서 행해야 된다.
51. 휴거 차원을 높이려면, ‘영’에 속해서 하여라.
52. 말씀을 받을 때도,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노래하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전도할 때도, 관리할 때도 모두 ‘영적’으로 해야 된다.
53. 작품을 만들 때도 ‘영’에 속해서 하면 봐도 ‘영적인 기’가 오고, 깨닫게 되고, 감동도 온다.
54. 같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도 ‘육적으로 하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하는 자’가 있다.
55. 교회 운영도, 설교도 ‘영적으로 하는 자’가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킨다.
56. <육적인 자>는 ‘육성’을 가지고 ‘무력’으로 행한다.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토끼뽀를 시키고, 소리를 지르고, 육에 속해 육~ 하고 행한다. ‘가인에 속한 목회자’다. 고로 성령이 내려오라고 하셨다.
57. <감정으로 처리하는 자>는 ‘육에 속한 자’다.
58. 형제의 잘못이 작은데 크게 더해서 보고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육에 속한 자’다.
59. <새>를 보고 ‘독수리’라고 과장되게 보고하는 자들이 있으나, 후에 다 파악하고 바로잡는다.
60. <자기 주관적 보고>를 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가 그러하니, 형제들도 그러하다고 보고한다. 온전해라.
61. 지도자들은 자기가 그러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자기 주관적인 시선>으로 보니, ‘육적’인 것이다. <주의 시선>으로 보아라. 그래야 ‘영적’이다.
62. 하나님도 ‘영’으로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결국 ‘인간의 육신’은 늙어서, 형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63.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이끌어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했다고 피스넷에 공적으로 올린다. 또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전도해 놓고, 각 사람마다 한 사람씩 전도했다고 피스넷에 공적으로 올린다.

64. 처음에 생명을 인도하여 전도한 자가 있고, 관리하여 이끌어 준 자가 있다. 성령께서 전도자를 쓰고 주와 함께 생명을 인도하여 데리고 왔으니, '씨를 뿌린 자'로서 공적이 있다. 또 관리하여 잡아 주지 않았으면 생명이 살지 못하니 '가꾼 자'로서 공적이 있다. 전도는 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안 나오던 자를 다시 나오게 하면, 그 사람이 '전도 공적자'가 된다.

65. 피스넷에 공적자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공적'을 아시고 '영적으로 면류관을 줄 자들'을 찾아서 다 주셨다. <주의 머리>에 '자기 공적을 입력'시켜라. 피스넷도 100% 공의롭게는 못 한다.

66. 자기가 그 생명을 위해 행한 만큼 '공적'이 올라간다. 밭을 가는 자를 생각하고, 씨 뿌리는 자를 생각하고, 가꾸는 자를 생각하고, 퇴비하는 자를 생각하고, 잡초 뽑는 자를 생각해라. 이 일들을 혼자 다 했다면, 그 사람이 100% 전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를 저 준 '주'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해라.

67. 성령께서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여 생명을 불러 오신다. 전도자는 인도만 한 것이다.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 관리하고 가르치고 키우시고 사명을 주신다.

68. 전도자는 '엄마'와 같다. 엄마 품에서 계속 '젖'만 먹고 자랄 수 없다. '성장함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주께 배우고 주와 일체 되어 '일꾼'이 되어 행해야 된다. 어떤 자는 젖을 먹으면서도 바로 '주와 일체' 되어 '지도자'가 되어 크고, 어떤 자는 3년, 7년 10년씩 컸어도 전도자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전도자 수준에서 크다 만다. 이렇게 하는 전도자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책망받는다. 월명동의 돌을 쌓을 때도 '쌓는 자의 손'을 거쳐야, 돌을 '제 위치'에 세우고 놓는다. '생명을 세우는 일'도 그러하다. '주의 손'을 거쳐야 '제 위치'에 선다. 어떤 자는 목회도 하고 섭리사의 큰일을 할 자인데, 본인이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하며 계속 끼고 관리하다가 결국 세상에 뺏겼다. 그런 자에게는 다시는 생명을 안 보낸다.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생명을 쥐고 있으면, 결국 그 생명이 손에서 벗어난다. 주의 손에 오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도 육도 그 차원에서 살게 된다.

69. <생명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자>는 '애굽의 바로 왕에 속한 자'다. '모세'를 통해 애굽을 벗어나야 '애굽의 몸종'이 안 되듯, 생명도 그러하다.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자들은 그 죄가 심히 크다. 삼위께 갈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다. 생명들은 '건축물의 자료와 기둥'이 되니, 건축할 때 주께 맡겨야 '섭리역사 건축'에 쓰여진다. 그때 못 쓰이는 자들은 결국 '건축물'이 되지 못하고 '날개'로 돌아다니다가 '부속품'으로 작게 쓰여지고 만다. <주>께 속하지 못하고 <전도자에 속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의 몸종'이 되는 격이다. 주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흠어지게 하신다.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마치 '참포도나무를 접붙이지 못한 돌포도나무'와 같아서 '돌포도나무'로 크다.

70. <독수리>는 안 뺏기는데, <까치>가 반갑다고 잡고 있다가 놓친다.

71. <작은 새>가 '큰 새'를 잡고 있다가 놓치고 평생 운다.

72. <주와 일체 된 자>만 '거기에 속한 독수리'가 된다. 인성 관리로 굳어진 자는 생명을 관리하다가 돈만 쓰고 빚지고, 결국은 더 못 하니 손을 놓고 빚을 갚는다. 영적 관리, 말씀 관리다. 말씀을 제대로 넣고 주를 증거하면, 주와 일체 된다.

73. 예술인들은 예술을 하는 만큼 '영적'이어야 된다. <영적>이지 않으면, '육성'에 속해서 결국 모래땅의 나무나 꽃같이 시든다. 그러다 '사탄'이 끌고 간다.

74. <섭리사의 표상자>를 따라서 해라.

75. 모든 말씀은 ‘핵 한마디’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 몇 시간씩 걸린다. 이번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한마디를 가지고 70개가 넘는 잠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잠언을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해 주고 있습니다.)

76. 먼저는 ‘신령한 영’이다. 그다음에 ‘육’이다. <육>은 항상 ‘세례 요한 격’이다. ‘영적인 것 우선’이다. 영 중심, 주 중심, 삼위일체 중심하여야. 보다 <가인>은 ‘육 중심’한다. 이것으로 ‘가인과 아벨’을 구분한다.

77. <영적>으로 하면 쉽다.

78. <육적>으로 하면,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

79. <영>이 가서 하면 ‘순간 파악’하고 온다. <육>은 가지도 못하고, 가도 모른다. <영>이 하게 하려면, <육과 생각>이 주와 일체 되어 주의 생각대로 하고 신령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

80. 한때,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써서 보낼 일이 있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여 ‘안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영>이니, 나를 앞세우고 해라.” 하시어, 20분 동안 말씀을 써서 보냈다. 수 천 명이 그 말씀을 듣고, 섭리사 행사를 하게 되었다.

81. 잠언도 <육적>으로 쓰면 보통 말씀이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린다. <영적>으로 쓰면, 바로 ‘영계의 것’을 쓴다.

82. 왜 ‘영적’으로 하라고 말씀했는지 아느냐. 선생도 ‘육적인 일’ 먼저 하니, 안 됐다. <나의 육적인 일>이 무엇이나. ‘편지와 각종 보고에 대한 처리’다.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급한 편지가 와도 먼저는 <영적인 일, 117기도>다. <영적인 것> 먼저 하면, ‘네 영’이 ‘나’와 함께 가서 급한 일을 처리한다. <같은 공적인 일>이라도 ‘영적인 것’ 먼저 해라.” 하시며 “모두 이와 같이 해라.” 하셨다. 그리고 오늘 잠언을 주셨다. (이 잠언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전해 줍니다.)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꿈에 중간 크기의 개를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니는데, 개가 “나 배고파.” 하고 나를 쳐다봤다. 즉시 먹을 것을 주려고 발길을 돌려서 오다가 꿈에서 깼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순간 10초쯤 졸았다. 즉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받으라는 계시인 것을 알고, 잠언을 받기 시작했다.

2. 자기가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절대 승리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는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돕지 않고 죄짓게 놔뒀냐?’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산다. ‘자기 잘못’임을 정녕코 깨닫게 해 주신다.

3. 사람들은 자기가 순간 판단을 잘못하고 유혹받아 놓고서는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내가 유혹받게 그냥 두셨지? 왜 유혹하는 자가 내게 오도록 그냥 두셨지?’ 하고 원망한다. 유혹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간다. 자기가 이기면 다 이긴다. 자기가 주께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을 붙잡지 않고 가만히 허락해 놓고서, 잘 안 되고 유혹받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원망한다.

4.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쪼개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심판>은 ‘사명 심판’이다. <두 번째 심판>은 ‘행한 대로 갚아 주는 심판’이다.

5. <사명 심판>은 ‘사명을 제하는 심판’이고, <행한 대로 갚아 주는 심판>은 ‘행한 대로 해당되는 짓값을 받는 심판’이다.

6. 루시퍼는 자기 사명의 위치를 지키지 않음으로 첫 번째 <사명 심판>을 받아 ‘천사장 사명’에서 내려왔고, 두 번째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을 받아 ‘자기 위치에서 쫓겨나 짓값을 받는 심판, 지옥에 갇히는 심판’을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1차 <사명을 제하는 심판>을 하시고, 2차 <짓값을 선고하여 행한 대로 짓값을 받는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서든, 육적인 세계인 땅에서도 이같이 하신다. 영의 세계

도, 이 세상도 공의롭게 다스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하신다.

7.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첫 번째로 <육 심판>을 하였고, 두 번째로 <영 심판>을 하셨다.

8. <죄>를 지었으면 진정으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진다.

9. 작은 휴지 조각이라도 안 치우면 몇 년이고 그대로 있듯이, <하찮은 죄>라도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없어진다.

10.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즉시 ‘죄’에서 벗어나 ‘자기가 죄를 지은 대가’만 받으면 끝난다.

11.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도 육도 영도 계속해서 ‘죄의 주관권’에 매여 있다.

12. <죄와 불의>를 모르고 행하다가는 ‘사랑’을 받을 자가 ‘심판’을 받는다.

13. <죄와 불의>를 알고도 조심하지 않고 행하다가는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다.

14. <죄와 불의의 길>은 조심해서 가도 손발이 묶여서 제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트시니 안 되고, 죄와 불의를 많이 먹어서 배가 절벽에 걸려 떨어진다.

<2017년 6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환경>이 좋아도 ‘자기 삶의 터전’이 돼야 존재할 수 있다.

2. <환경>이 안 좋아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거기서 살게 된다.

3. 신앙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4. 월명동 환경은 ‘신앙’을 하기에 좋다. 산 좋고 물 좋지만, 돈을 벌고 생활하는 환경은 못 된다. 고로 도시에서 살면서 월명동은 멀리 있는 성전같이 오고 가야지, 그곳에 살려고 이사 오지는 말라는 것이다.

5. <환경>과 <삶>은 다르다. <환경>도 좋고 <살 여건>도 되면, 너도나도 살려고 몰려온다.

6. 철새들도 ‘환경’이 좋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안 간다.

7.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구경하는 관광지’가 된다.

8. <교회>는 집과 떨어져 있어도 괜찮고, 돈 버는 삶의 터전과 일하는 터전이 아니라도 괜찮다. 생활하며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의 별장’과 같다. 고로 깨끗하고 좋으면, 조금 멀어도 선택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만나는 궁이다. <삶의 터전>은 ‘먹고 사는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으니, 가까울수록 좋다. 무조건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가려 하면, ‘삶의 터전’과 멀어지니 힘들다.

9. 구약 때 아브라함도 <삶의 터전>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 드리고 내려왔다.

10. <교회>를 옮겼어도, 무리하게 <삶의 터전>까지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옮기지 말아라.

11.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로 다니면 된다. 자기 삶의 터전에서 교회가 가까우면, 새벽기도 가기가 좋다.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있는데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라고 멀리 있는 곳까지 가려 한다. 섭리사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한집안 식구인 신부들에게 지어 주신 교회'다. 왕벌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격이다. 고로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건축헌금을 했어도, 후에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교회가 생기면 '가까운 교회'로 가면 된다.

12. 이쪽 지역의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했어도 후에 자기 집 옆에 교회를 사면, 가까운 교회로 가라. <교회>는 '공용'이니, 모두의 것이다.

13. 성전을 얻을 때도 '이쪽 지역의 교역자들과 교인들'끼리 의논하고 안 되면 '교단'이나 '선생'에게 이야기해라.

14. 섭리사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 예전 전세살이 할 때와는 다르다.

15. 교회를 건축하거나 살 때 '이 지역'에서 건축헌금을 했는데, <자기 삶의 터전>을 '저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도 '저 지역 교회'로 옮겼다 하자. 그런데 '저 지역'에서도 새롭게 교회를 사려 하면, 다시 무리해서 건축헌금 할 것 없다. 한 곳에 했으면 됐다. 그때부터는 하늘 앞에 드릴 것 드리면서 하면 된다. 교회는 투자하고 농사짓고 사는 곳이 아니다. <삶>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 <교회>도 뿌리박게 된다.

16. 교회가 이사 간다고 자기도 따라서 이사 가면, '교회'는 가까워져서 좋은데 '자기 생활의 터전, 일의 터전'과 멀어져서 힘들다. <생활의 터전>이 가까워야 '문전옥답(門前沃畝)'이니, 그곳에 뿌리를 박아라. <교회>는 '생활의 터전'이 아니니, 조금 멀어도 괜찮다. 교회가 집에서 멀면, 새벽예배는 '집'에서 드리면 된다.

17. 1시간, 1시간 30분씩 걸리면서 멀리 있는 교회에 가지 말고, 집과 제일 가까운 교회에 가라. 교회가 작아도 '핵심 말씀'은 같다.

18. 대학교 다닐 때는 이 교회에 다녔다가, 졸업하여 삶이 바뀌거나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교회가 멀어질 때가 있다. 직장을 옮기는 자들도 그러하다. 그때는 '가까운 교회'로 옮겨야 된다. 분위기는 자기가 하기에 달렸다.

19. <삶의 환경>이 그리 중요하다.

20. 뉴질랜드에 가 보면 '세계적인 정원들'이 많다. <환경>이 너무 좋으니 땅을 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장사도 하고, 음식점도 한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도 <삶의 터전>이 안 되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기만 하지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 결국 외로워서 집도 땅도 다 두고, 혹은 팔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 관광지로는 좋아도 생활의 터전이 안 되니 '삶의 터전을 잡은 상인들이나 사는 곳'이다.

21.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생활의 터전>은 귀찮고 힘들어도 '문전옥답(門前沃畝)'이니, 거기가 '좋은 곳'이다. 조용하게 쉬고 바람 쐬는 곳은 '생활 터전에서 벗어난 곳'이 좋다. 그렇다고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하면, 못 산다. 고로 하나님은 <삶의 터전>은 '생활하는 곳'에 주시고, <교회>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예비해서 주신다. 일하다가 교회로 뿔뿔 날아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된다. <교회>를 멀리 떨어진 곳에 얻었다고 <삶의 터전>까지 옮기면, 서로 벌어먹을 것이 없으니 힘들어서 다시 이사 나오게 된다. 교회가 집과 멀리 있으면 일하다가 교회로 뿔뿔 날아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새벽기도는 가까운 교회에서 하고, 가까운 교회가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고, 그래도 힘들면 가까운 교회로 옮기면 된다.

22. 월명동에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을 만들어 놓고, 각 도시와 지역마다 '교회'를 얻고 건축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별장 성전'같이 <월명동>에 오게 하니, 조화와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23. 매일 '경제 축복'을 간구해 주니, 행하여라. 안 하면 얻지 못한다. 하면서 벌고, 얻고, 먹고, 입고, 자라. <하나님과 주의 전>은 '신앙의 집'으로 삼아라.

24. <신앙>만 중심하면 '육이 곤고'하고, <육>만 중심하면 '영적으로 곤고한 삶'이 된다.

25. <한 교회>만으로는 '전세살이'가 연속될 수밖에 없다. 몇 개 교회가 뭉치면, 작더라도 교회를 산다. 집도 '전셋집'

과 ‘자기 집’이 다르듯, 교회도 그러하다. 월세를 내면 그 돈이 다 소모되지만, 건물을 사면 대출금 이자를 갚더라도 건물비로 들어가니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26. 결혼하면 작더라도 ‘개인 집’이 있어야 되듯이, 이제 작은 교회라도 뭉쳐서 교회를 사야 된다. ‘월세’로 나갈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갚는 것이 낫다.

27.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지역의 좋은 환경>에 ‘궁’을 마련하신다. 성전의 근본은 ‘하나님의 전’이고, 땅으로는 ‘주의 전’이며 ‘주의 몸’이다. 고로 높은 수준으로 보시고 ‘자연성전의 대상체’같이 택하신다.

28. 교회를 구할 때 그리도 수고하며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성전을 뒀더니, 처음과 마음도, 행실도, 결심도 다르다. 어서 전도하여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라.

29. 처음에 애간장 태우면서 전도해 났는데, 세상이나 이단에 뺏긴 생명들도 있다. 그만큼 관리를 안 해서다. 지도자들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오게 하려면 10배 힘들다. 신임을 잃었으니, 다시는 생명들을 그 교회로 안 보낸다. 교회가 생명들로 차고 넘치게 하려면 감사와 사랑으로 전도해라. 가르쳐라. 관리해라. 뺏기지 말아라. 이것을 지속해라.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냐.

30. <번성>은 ‘무성’한 것이다.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것이 아니다.

2. <사전(事前)>을 통해 <현실>에 일어난 것이다.

3. 만물들도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어 자라고 커서 ‘현실’에 보인다.

4. 선도 악도 ‘이미’ 자라고 커서 ‘현실’에 나타나게 된다.

5. 인생이 망하고 흥하는 것도 ‘순간’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전에 오래 지속’되다가 ‘현실’에 일어난 것이다.

6.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느냐. 이미 씨가 떨어져서 오랫동안 크고 자라다가 ‘복덩이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만사의 모든 것이 그러하고, 선도 악도 그러하다.

7. <현실의 하나님의 역사>도 하루 이틀에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하여 역사해 온 것’이 ‘현실’에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이다.

8. 행복도 지금 바라고 행하면, 행복이 크고 자라서 앞날에 열매를 맺게 된다.

9. 목적을 두고 오랫동안 지속하며 행해라. 그러면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어 얻게 된다.

10. 자기 몸무게도 급하다고 하루 이틀 만에 줄이지 못한다. 오랜 기간을 두고 살이 찘으니, 그만큼 시간을 두고 살을 빼야 된다.

11. 여러 가지를 원하면, 여러 가지를 꾸준히 해라. 때가 되면, 여러 가지가 결실하게 된다.

12. 하면 되지만, 뭐든지 그것만큼 힘들다.

13. 실천하여 얻으면 간수를 잘하기다. 귀히 여기고 보존하기다.

14. 어떤 것을 얻으려 할 때는 몸부림쳐 얻었다. 처음에는 그리도 귀히 여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상실하여 잃게 된다. 다시 얻으려고 하니 배로 힘들고, 이미 아예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
15. 얻기, 쓰기, 간수하기, 관리하기, 그로 인해 또 얻기다.
16. <일순간에 좌우되는 기회>가 있다.
17. <순간의 기회>는 ‘순간의 판단과 처세와 실천’에 의해 좌우된다.
18. 청중이 모였다가도, 때가 되면 일순간에 제 갈 길을 간다.
19. 지하철도 구간마다 일순간 멈추면, 사람들이 일순간 내리고 탔다가, 다시 일순간 떠난다. 이와 같이 삶도 그러하다. ‘삶의 톱니바퀴’다. 그때마다 <할 일의 기회>가 ‘순간’ 오고 간다. 준비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민첩하게 행하지 않으면, 순간 지나간다.
20. <자기가 희망하던 기회를 잡고 행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21.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잡을 수 없듯이, 제때 못 하면 ‘오고 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
22. 줄넘기할 때 순간순간 실천해야 줄에 안 걸리듯, 할 일을 할 때도 순간순간 판단하고 실천해야 그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23. 생각지도 않은 때에 ‘기회’가 오면 놓친다. 고로 늘 생각하고 예비하여라.
24. 항상 뿌려라. 심어라. 키워라. 관리해라. 수고한 자가 거두게 된다.
25.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서는 거두지 못한다.
26. 썩 사냥을 할 때 어느 때는 썩이 있고 어느 때는 없으니, 썩을 길러서 농장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매일 농장에 썩들이 가득하다.
27. 풍부하게 얻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인생도 신앙도 ‘농사’와 같다.
28. <때>는 정확한데 <자기>는 정확하지 않으면, 장맛비에 순간 개울물이 흐르다가 장마가 끝나면 마르듯 한다.
29. 사랑도, 기회도, 할 일도 ‘순간’ 지나간다.
30. <죄>는 ‘병’이다.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병들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되니, <죄>는 ‘죽음’이기도 하다.
31. 치타의 특기는 ‘기회 포착’이다. 그만큼 빠르다. 그래서 <시대 복직된 하와>도 ‘치타’처럼 만들었다. 1차 3년, 2차 3년, 3차 4년 키워다. 그리고 키워서 1차 3년 쓰고, 2차 4년 쓰니 더 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키웠고, 본인도 해냈다. <때>가 맞고, <조건>이 되고, <예정>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 사명 하고 싶어요. 저는 왜 그렇게 안 키워요?” 한다. 그게 인력으로 되느냐. 키운다고 되느냐. 각자 자기 사명의 위치다. 달이 해가 될 수 있느냐. 별이 달이 될 수 있느냐. 각자의 사명을 하며 빛나는 것이다. 주와 일체 되어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사명’을 하여라.
32. 저마다 ‘자기 때’가 있고 ‘자기 할 일’이 있다.

33. <자기 때>를 알아야 된다. 크는 때인지, 쓰여지는 때인지, 아직 씨도 안 뿌렸는지, 깨닫고 실천하여라.
34. <만물>을 통해 배워라. ‘때’에 맞춰 ‘형체’가 이루어진다. 인생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고, 사명도 그러하다.
35. 동물들도 살아갈 때나 사냥할 때나 ‘때’를 맞추기 위해 집중하며 노력한다.
36. 동물의 세계를 보아라. ‘때’를 못 맞추면 잡아먹히고, ‘때’를 못 맞추면 혼자 벌판을 다닌다.
37. 동물들도 겪고, 다음에는 더 좋게 행한다.
38. 동물들은 ‘생활’이 복잡하지 않으니, 오히려 <생각>이 총명하고 <움직임>이 민첩하다. ‘먹이를 찾는 것’과 ‘사냥을 당하지 않는 것’ 두 가지에만 집중하니, 그 면에서 생각이 높다.
39.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먹고, 입고, 경계하며 해를 받지 않기 위해 주의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활동도 하면서 수십 가지를 해야 하니 ‘생각’에 착오가 많다.
40. 여러 가지를 많이 할수록 ‘생각의 차원과 강도’는 떨어진다.
41.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면에서 생각이 깊고 높다.
42.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 하는데, 새벽이 닳쳤을 때 그때 마음먹으면 일어나지지 않는다. <사전>에 준비하고 일찍 자야 된다.
43.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시간>같이 빨리 가는 시간은 없다.
4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 때> 지루함 없이 시간이 잘 간다.
45.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것에 빠져 살아야,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잘 간다.
46. 밥을 먹을 때나, 할 일을 할 때나, 작품을 만들 때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나 좋아하면서 할 때, 좋아하는 만큼 시간도 빨리 간다.
47. 시계를 없애면 시간 개념이 없으니, 시간이 빨리 간다. ◎ 6월 11일 새벽이다. 기도하고 잠언 썼다. 이제 8개월 10일 남았다. 올해 3.16 때 나갈 날을 계산해 보니 340일 남았었는데, 어느새 250일밖에 안 남았다. 시간으로 계산하니 6000시간 남았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5125시간 남았다. 운동 시간까지 빼니 4825시간 남았다. 씻는 시간 빼니 4600시간 남았다. 일할 시간은 190일 정도 남았다. 나머지는 소모품 같은 시간이다.

<2017년 7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를 표준으로 하면 생각이 낮아서 ‘분별’을 제대로 못 한다.
2. <자기 생각>을 표준으로 하면 생각이 낮아서 ‘죄가 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인 것’도 모른다. 아예 <자기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하면, 제대로 분별한다.
3. <마음을 비웠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4. 마음을 비우면, 삼위일체가 얼마나 좋고 기쁘고 흥분되게 해 주시는지 아느냐.

5. <자기중심>은 ‘자기 인생’이다.
6. <마음을 비우는 것>이란, ‘자기 생각을 한 획도 안 하는 것’이다.
7. <마음을 비우는 것>이란, ‘자기 생각을 한 단어, 한 글자도 안 하는 것’이다.
8. <마음을 비우는 것>을 비유로 말하면, ‘입을 꼭 다물고 한 마디도 안 하는 것’과 같다.
9. <마음>은 고쳐졌어도 <육신>이 고쳐지지 않았으면, 행할 때 행해지지 않는다.
10. <그릇된 것>도 자기가 좋다고 판단하고 그 생각이 뇌에 꽂 차 있으면, 그것만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뽀박’이라고 생각한다.
11. <자기 육의 무지한 사고, 그릇된 인식, 자기중심의 생각>은 ‘자기 영’이 ‘지옥’에 가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고로 “내가 왜 지옥에 왔지?” 생각한다. 그 의문을 풀어 줄 자가 없으니, “이러다 지옥에서 나가겠지.” 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12.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를 했던 자들도 자기는 세상에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릇된 비진리’를 행하며 전하고 가르쳤기에 <그 영>이 ‘자기 육의 그릇된 주관’대로 ‘사망권’으로 가 있다. 어떤 영은 혼자 진흙탕에 빠져서 헤매기도 한다. 그런데 잠깐 실수하여 빠졌다고 생각하며, 남이 보기 전에 거기서 얼른 나오려고 한다. 하루 종일 온갖 발악을 하며 나오려고 하지만, 곧 나올 것 같아도 안 나와진다.
13. 세상에서 ‘비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면, 한 기간까지는 존재한다. 그러나 ‘<육>이 행한 대로 <혼과 영의 운명>이 결정되어 그에 해당되는 길을 가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에, 결국 <영>이 고통의 세계로 가서 고통을 받는다.
14. (주) 오직 ‘진리’를 따라라.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따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권’으로 갈 수 없느니라.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면, 잘못된 것도 좋아하다가 죽는다.
2. 사탄과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3. 사탄은 ‘지옥 선고를 받은 자들’이고 ‘악’이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일들을 하면 하나님의 편이라서 사탄을 이긴다.
4. 모기를 가만히 두면 물리듯이, 사탄을 가만히 두면 당한다. 사망에 속해 있는 악한 자들도 그러하다. (이 잠언을 쓰는데, 모기 한 마리가 내 귀로 날아왔다. 잡았다.)
5. 가만히 있으면, 악인들이 의인에게 해를 준다.
6. 도둑질하는 자, 사기꾼들을 보아라. 가만히 있으면 계속 훔쳐 가고, 계속 유인하면서 사기 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의 검’으로 단호히 끊고 잘라라.
7. 사기꾼들은 항상 뭘 준다고 하고 유익을 준다고 하면서, 상대가 기대하고 미련을 두고 따라다니게 유인한다. 그러다 똥망 사기 치고 자기 것으로 삼고 사라진다.

8. 사기꾼들은 뭘 해 준다고 하면서 유인한다. 그것을 얻으려고 따라다니니, 계획적인 그물에 걸려들어 사기를 당한다.
9. 세상에 사기꾼치고 안 도와준다고 말하는 자 한 명 없고, 유익이 안 된다고 말하는 자 한 명 없다. 상대가 안 믿으면 “그럼 그만둬! 너 후회하지 마!” 한다.
10. 사기꾼은 꼭 자기 통장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여 주면서 상대가 믿게 유인한다. 그것을 미끼로 삼고 사기 행위를 한다. 걸리면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거짓말이냐?” 하며, 돈을 방패로 삼고 이용한다.
11. 사기꾼 중에는 말은 하는데 실천은 안 하는 자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만 실천하는 자도 있다. 고로 그것을 보고 따라가기도 한다. 그렇게 따르게 하다가 때가 되면 사기를 치고 유유히 사라진다.
12. 사기꾼은 ‘과거에 자기가 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카드로 쓰면서 믿으라고 한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과거’는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과거’를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다. 혹은 과거에 잘했어도 지금은 사기를 치고 다니니, 과거만 보고 믿으면 속는다. 제발 알고 살아라.
13. 사기꾼은 상대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 10억이 있다고 말하며 산다고 한다. 또 상대가 100억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자기에게 100억이 있는데 좀 깎아 달라고 조르고 사지는 않는다. 자기에게 돈이 있다고 하며 이용만 하고, 상대가 믿도록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러다 자기 뜻을 이룬다. 믿고 따르는 자들의 시간도 이용하고, 돈과 환경도 이용한다. 절대 속지 말아라. 사기꾼은 결국 ‘법의 올무’에 걸린다.
14. 선생도 사기꾼이 있으면, 근본의 뿌리를 뽑으려고 처음에는 모사로 믿어 준다. 그러면서 확인한다. 그 행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15. 사기꾼에 대해 말씀해 줘도 ‘하나의 이론으로만 아는 자들’은 또 그들이 놓은 올무에 걸려서 따라간다. 그리고 그 사기꾼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사기꾼도 ‘자기 증인들’을 만들어서 세운다.
16. 사기꾼은 상대를 거짓으로 믿어 준다. 전술이다. 수법이다.
17. 주는 그 위치에서 이미 알고, 하나님께 올리고 답을 받았다.
18. 1개 있는데 “10개 있다. 100개 있다.” 말만 하면서, 섭리사에 올무를 놓는 사기꾼들이 있다. 주가 독수리 부리로 찌는다.
19. 한번은 방송을 보니, 어떤 나라에 ‘25만 평짜리 굴’이 있는데 25년 동안 혼자 개발했다고 하며, 그 사람을 ‘신화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 방송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직접 확인하니, 2년 동안 개발한 ‘10미터짜리 굴, 20평짜리 굴’ 밖에 없었다. ‘25만 평 굴을 개발했다고 하는 자’는 사라지고, 부동산 중개하는 다른 사람만 있었다. 확인하지 않은 자는 속고, 확인한 자는 안 속는다. 이에 성령은 내 눈을 뜨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 민족에 천연 굴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굴들을 구경하지, 왜 그 먼 데까지 가냐.” 하셨다. 그때부터 방향을 틀었다.
20. 사기꾼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놓고 365일 매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니, 안 속는다.
21. 사기꾼은 전도하지 말아라. 끊어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22. 사기꾼은 1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100배, 1000배 불리고 붙여서 말한다. 확인하면 1개를 보여 주면서 근거로 삼는다. 그리고 상상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
23. 그렇게 말씀으로 선포해도 말씀을 깊이 안 듣다가, 사기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니 보고도 안 한다.
24. 항상 제자들이 선생을 위한다고 하면서, 모르고 사기꾼을 연결시킨다. 사기꾼은 자기를 절대 믿게 만들면서 끌어들

인다. (오늘 잠언으로 말하는 사기꾼은 사명을 선생 50, 자기 50으로 보는 자다.)

25. 사기꾼보다 지능과 생각하는 수준이 낮으면 속는다.

26. 모두 속지 않게 드러내라.

27. 하나님은 ‘그릇된 자, 거짓된 자’에게 ‘사망의 선고’를 내렸어도 본인에게 말을 안 하신다. 이는 악을 쓰고 하나님을 욕하기 때문이다. 그 영혼이 사망에 가면, 그를 썬 마귀가 왜 지옥에 왔는지 말해 준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나 마귀에게 썬을 받고 여기 왔다.” 한다.

28. 종교의 사기꾼들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다. 하나님이 속으시겠느냐. 이미 아시고 ‘사기꾼들 속’에 넣어 두신 것을 모르느냐.

29. <사기꾼>도 거짓말 덩어리이고, <사탄>도 거짓말 덩어리이고, <악평자>도 거짓말 덩어리다.

30. 거짓된 자는 ‘거짓의 본향, 어둠과 사망’으로 간다. ◎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31. 사기꾼은 상대가 알 때까지 계속 속이는 말을 한다. 모르면 계속 속는다. <돈>도 내주지 말고, <시간>도 내주지 말아라. <시간>도 ‘돈’이다.

32. 어떤 사기꾼은 ‘선’을 안 넘고 ‘근거’를 보여 주면서 지능적으로 사기를 친다. 이런 자는 ‘사람들이 몰라보는 사기꾼’이다.

33. 근거를 확인하려 하면, 지능적인 사기꾼은 미리 ‘거짓 문서, 거짓 근거’를 준비했다가 보여 주면서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거짓으로 꾸며 놓은 것’이니, 확인하는 상대가 모른다. 혹은 ‘과거에 한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말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나. 성령이 사기를 안 당하게 깨닫도록 영감을 주셨으면, 100% 믿지 말고 따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당한다.

34. 사기꾼은 치밀한 작전을 세운다. 상대가 속도록 차원 높여 작전을 세운다. 상대가 확인을 못 하게 복잡하게 서류를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속아 버린다.

35. 땅이 있다고 해서 가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다. 그런데 사기꾼은 곧 풀린다고 하며 사기를 친다. 어떤 사기꾼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어떤 사기꾼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전화하여 확인하라고 하며 사기를 친다. 전화해 보면 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큰일을 하는데, 이 일은 비밀이다. 다 말을 못 하니 믿어라.” 하면서, 상대가 더 못 물어보게 한다.

36. 섭리사에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자들은 ‘섭리인들이 믿는 선생’을 가식으로 믿어 주면서, 섭리인들이 믿고 따르게 하며 사기를 친다.

37. 부동산 사기꾼들도 많다. “우리가 다리를 놔서 10억짜리 건물을 싸게 사게 해 주겠습니다.” 한다. 그러니 그 부동산을 믿고 따라간다. 그러나 그 건물을 파는 자는 ‘7억’을 달라고 했다. 부동산이 손님을 잡으려고 사기를 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건물을 파는 자에게 자기가 비싸게 팔게 해 준다고 하면서 ‘9억’에 팔고, 그로 인한 이익을 챙긴다. 교회를 살 때도 부동산 사기꾼을 조심해라.

38. 사기꾼을 놓고 매일 기도해라. 그래야 그 조건으로 손해를 안 본다.

39. 하나님이 섭리사에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성전인데, 사기를 치려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겠느냐.

하늘의 때가 되어 절대적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하니, 결국 내놓게 된다.

40. 한 도시에서 경매로 교회를 사려고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순간 사무실의 컴퓨터가 고장 났다. 그러다 그 건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그 교회를 못 사고 ‘서울의 한 교회’를 샀다. 한 달 후에 그 건물을 낙찰받은 자가 자기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가 낙찰받은 값에 건물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다. 선생이 편지를 받고,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사지 말아라.” 하셨다. 그리고 그 건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그 건물에 금이 가서 15억을 더 들여서 고치고 있었다. 낙찰을 받은 자가 1억을 들여 소송을 했지만 패소하여 결국 자기 돈도 날아가고, 상대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찰에 참가하려 할 때 순간 컴퓨터가 고장 나게 하여 입찰을 못 하게 상황을 틀어 주셨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 후 7~8개월 후에 그 도시에는 다른 좋은 건물이 나와서 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교회 건물을 얻게 되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다. 첫 번째는 ‘상황’을 틀어서 안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사 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건물 대신 ‘서울의 한 교회’를 사게 하셨고, 그 건물을 통해 ‘교회 건물’을 사도록 눈을 뜨게 하셨고, 후에 그 도시에는 ‘더 좋은 교회 건물’을 주셨다. 이로써 ‘두 곳의 교회 건물’이 해결됐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같이 늘 섭리사에 행하신다. 믿고 늘 감사해라.

41.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니, 지역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성전이 작으나 크나 하나님이 95% 행하시고, 우리들이 5% 행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여라. 그리고 받았으면 귀히 써라. 생명으로 채워라.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주시고,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때가 있으니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대로 확실히 보고 하여라. 하나님과 성령이 행하셔도 ‘문제’를 제대로 안 주면 ‘답’을 제대로 못 주니, 제대로 하여라. 모르고 행하면, 손해 간다.

42.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위치>가 안 좋으면, 상황을 트신다. 하나님은 <위치>를 보고 ‘성전’을 주신다.

43. <사명>도 ‘자기에게 맞는 위치’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면,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44. 자기 때, 자기 위치다.

45. <위치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타락’이다.

46. <타락>은 ‘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47. <제 위치>가 ‘최고 명당’이다.

48. <제 위치>가 ‘최고 사명’이다.

49. 주 앞에 충성과 사랑으로 ‘제 위치’를 지켜라. 루시퍼는 천국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를 지키는 제 2의 기회를 주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못 지키고 ‘제 위치’를 벗어나서 완전히 쫓겨났다.

<2017년 7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와를 못 지키고 ‘제 위치’를 벗어나서 완전히 쫓겨났다. ◎ 오늘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전해 준 잠언을 다 써 놓고, 허리가 아파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다가 순간 잠이 들면서 꿈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새벽 꿈 계시>
◆ 새벽에 잠언을 다 써 놓고 허리가 아파서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순간 잠이 들면서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큰 집, 큰 방의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데, 누가 큰 트렁크를 끌고 조용히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보니, ‘승무원 두 명’이었습니다. 비행을 가는 길에 순간 들렀다가 인사하고 간다고 했습니다. ◆ 그들이 나를 보고 “선생님, 저 아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너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했습니다. 원래 이들을 응접실에서 대접해 주면서 1:1로 따로 만나 주며 이야기해 주려 했는데, 갑자기 이들이 ‘자기 조카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는 지금 가야 되니, 먼저 만나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을 먼저 만나야지.” 하니,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돼요.”

하며 울면서 나갔습니다. ◆ 대문까지 쫓아가서 “무슨 일인데 우냐?” 하니, 그중의 한 명이 “저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을 좀 해야 한다.” 하니, 막 울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게 가끔씩 오는 영’이었습니다. 그 영은 ‘얼굴이 어둡고 좀 마른 영’이었고, 다른 한 영은 ‘그 영이 오면 같이 따라오는 영’이었습니다. 키가 작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위>대로 ‘영의 형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 대문 밖에 서서 “왜 우냐? 내게 말해 봐. 물어봐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시>가 수시로 오나요? 저는 <계시>가 수시로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랑 같이 온 사람은 아니라고 해서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말이 맞다. 합당할 때마다 수시로 계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면서 “저는 그렇게 계시를 받거든요.”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오늘은 바빠서 빨리 갈게요.” 하기에, “또 와라.” 하니 “다음에 올게요.” 했습니다. 그 여자를 따라서 같이 온 자는 조금 더 있다가 갔습니다. ◆ 그리고 나는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온 자들>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꿈 해석> ◆ 이 꿈은 ‘이같이 <시간>은 순간 지나가고, <할 일>이 순간 지나간다. <기회>도 순간 지나간다. <영의 세계>는 더 빨리 지나간다. 새벽에 하나님과 성령과 1:1 만남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계시였습니다. ◆ 꿈에서 ‘조카를 데리고 온 자’도, ‘같이 따라온 자’도 <1:1 신앙을 못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에 맞춰 주를 만나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시간>에 맞추어 만나려 하니 1:1로 만나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한 것을 보여 주며, ‘시간이 되니 다른 시간으로 바뀌어 성령님도 가셨다’ 함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 <영의 세계>는 안 보여도 ‘자기 육신의 행위’가 곧 ‘보이는 영계의 실체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 <내 육신>이 잠언을 쓰고 기도할 시간에 등을 벽에 기대고 있으니, 영계에서도 <내 혼>이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선악 간의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혼’도 행합니다. ◆ (이틀 동안 ‘거짓말 덩이 사기꾼, 거짓말 덩이 사탄과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육계에서 거짓말쟁이>는 <영계>에서도 ‘그 영’이 거짓말을 하고 다니며 악한 영들을 꾀고 유혹합니다. <세 가지 급의 신앙인들> ◆ 꿈에 ‘세 가지 급의 신앙인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 온 자들>은 ‘사랑으로 만나러 온 자들’이고 <두 번째에 온 자>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러 온 자’이고, <두 번째 온 자를 따라온 자>는 ‘끌려다니는 자’입니다. <사랑으로 온 자들>은 끝내 안 가고 기다렸습니다. <문제를 풀러 온 자>는 문제를 풀어 주니 얼굴이 퍼져서 갔습니다. <따라서 같이 온 자>는 조금 있다가 그냥 갔습니다. 섭리인들의 신앙도 이렇게 ‘세 가지 급’으로 비슷하게 나뉩니다. <마무리> ◆ 이 꿈은 ‘이같이 <시간>은 순간 지나가고, <할 일>이 순간 지나간다. <기회>도 순간 지나간다. <영의 세계>는 더 빨리 지나간다. 새벽에 하나님과 성령과 1:1 만남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계시였다고 말씀했지요? ◆ 성령과도 일체 되었다가 시간 되면 떠나시니, 성령이 계시 때 제시간에 제대로 서둘러 해야 됩니다. ◆ 항상 일찍 새벽을 깨워, 하고자 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대화하며 교통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생활의 차’를 잘~ 운전해야 됩니다. 늦으면, ‘먼저 차를 타고 간 자’가 수십 리를 간 후에야 늦게 가게 됩니다. 출발을 빨리해야 승리합니다. 목적을 두고 이기면서 생활하려고 해야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평범한 삶이 반복됩니다.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고 ‘자기 영, 혼, 육’을 구원하고 만들지 못하면, 단연코 ‘육’으로 허무하게 끝난다.
2. <이 세상에서 육의 삶을 마치고 끝나는 자들>이 너무도 많다. <육>만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3. <이 세상>만 아니, ‘육’을 위해서만 살고 끝나게 된다. <무지>가 ‘영원히 살 자기 영’을 망친다.
4. <영혼의 세상, 영의 세계를 아는 자>는 ‘육신’은 ‘이 세상’에 처해 살고, ‘영’은 육을 통해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고 행함으로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한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행함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한 자>가 ‘최고로 큰 것을 알고 최고로 큰 일을 한 자’다.
5.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을 잘 만들어서 좋게 살아야 된다.
6.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이 뇌에 저장되어 ‘생각’을 낳는다. 좋은 것, 옳은 것을 보고 들음으로 <생각>을 잘하고, <생각>을 좋게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
7. <시>가 떠오르면 그냥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 ‘시’를 써서 지혜로 잘 정리하여 ‘시의 덩어리’로 묶어라. 그리고 잘 다듬어서 ‘예쁜 시 문학’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보고 감동받게 하여라.

8. 뇌 작용으로 인해 ‘시’가 떠오르면, 그냥 쓰지 말고 잘 만들어서 완전하게 써야 된다. 만사의 모든 것이 이러하다.
9. 어떤 것이든 생각에서 떠오르면, 처음에는 ‘작은 것’이어도 잘 만들면 ‘하나의 큰 작품’이 된다.
10. <만사의 모든 것>을 ‘잘 만들어서 쓰는 것’과 ‘그냥 쓰는 것’은 천지 차이다.
11. <월명동>도 ‘안 만들고 쓸 때’는 보잘것없었다. 잘 만들어 놓으니 ‘탄 세상’이 되었다.
12. <생각 난 것>을 ‘잘 만들어서 행하기’다.
13. <문제>가 닥쳐도 ‘생각을 좋게 잘 만들고 해결하면서 행하기’다.
14. 하나님은 노래를 주실 때 ‘곡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사’를 주신다. ‘가사’를 잘 만들어 놓고 ‘곡’을 여러 번 부르면서 잘 만들어서 완성한다. 노래 한 곡을 지을 때도 마치 진수성찬을 잘 만들어서 먹게 하듯 해야 된다.
15. 가사 잘 만들기. 곡 잘 만들기다. 노래를 주면, 이미지를 음성으로 잘 나타내며 잘 부르기다.
16. <그 노래>는 ‘그 노래의 이미지’대로 불러야 된다.
17. <가사의 사연>을 ‘곡’으로 나타내고 ‘노래의 이미지’로 나타내야 된다.
18. 어떤 음식을 먹어 보면, 그 음식을 가지고 더 이상 다른 맛을 못 낼 것 같아도 다른 맛으로 만든다. 먹어 보면 “이게 더 맛있네!” 한다. <노래>도 이 노래는 더 이상 다른 분위기가 안 날 것 같아도 다른 맛이 나게 다른 곡으로 만든다.
19. 늘 그 음식만 먹어 봐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체질이 되어 그 음식만 먹는다. 그러나 다른 요리사가 그 재료를 가지고 손을 대면, 금방 다른 음식으로 더 맛있게 만든다. 두부 하나를 가지고서도 40가지로 요리한다. <노래>도 그러하다. 한 노래를 가지고 ‘가요, 트로트, 찬송가, 가곡, 판소리’ 등으로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노래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부르듯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도 다양하게 돌려라.
20. <말씀>도 분위기에 따라서 각종으로 전해라. 사람에게 따라서 각종 분위기와 맛을 내며 전해라.
21. <노래>도 ‘부르는 자’가 가사에 따라서 곡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잘 읊으며 불러야 되듯이, <말씀>도 ‘전하는 자’가 내용에 따라서 잘 읊으며 전해야 된다.

<2017년 7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빨리해야 할 수 있다.
2. 시간을 잡아야 할 수 있다.
3. 뜻이 있어야 된다.
4. 방법을 달리해야 할 수 있다.
5. 한 개씩 옮겨서는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방법을 달리해서 일곱 개씩 지고 안고 나르면, 오히려 시간이 남는다. 다른 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하여라.
6. 동시에 함께 하면 10배, 100배, 1000배 빠르다. (한 명씩 편지를 보내니 불가능했다. 합동 편지를 보내니 가능했

다.)

7. 할 때 해라. 그래야 시간이 단축된다.

8. 동서남북에 할 일이 있다 하자. 동쪽에서 조금 하고, 서쪽에 가서 조금 하다 보면 오고 가는 시간 때문에 하던 일이 집중이 안 돼서 시간이 10배 더 들어간다. 동쪽에서 할 때 그 일을 끝내고, 서쪽으로 가서 그 방향의 일을 해라. 그러면 빠르다.

9. 전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대화할 때 대화에 집중하고, 계시 받을 때 계시에 집중해라. 하루 일도 ‘그 시간에 속한 일’에 집중해서 해라.

10. 꿈에서 ‘생시에 보던 산’을 봤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니 생시에 보던 것과 전혀 달랐다.

11. 저마다 ‘계시’로 보이고 ‘사연’에 따라서 보이니, 달리 보인다. 똑같이 보여 줘도 ‘각자 영의 차원’이 있어서 달리 보인다.

12. 쪼글쪼글 구겨진 종이를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말리고 눅눅할 때 다리면 퍼지듯, 주름 진 얼굴도 촉촉하게 해 주고 당겨 주면 퍼진다. <쪼그라들고 구겨진 마음과 생각>도 모두 퍼라. 기도하면 퍼지고, 실천하면 퍼진다. 매일 손질하고 매일 쓰기다. 만드는 대로 된다.

13. 건조하면, 얼굴에 주름이 지고 늙는다.

14. 건조하고 영양기가 없고 운동을 안 하면, 얼굴도 몸도 탄력이 없어서 주름지고 쪼그라들고 쉽게 늙는다.

15. 신앙도 그러하다. ‘기름진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신앙의 일’과 ‘개성의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은혜의 강, 진리의 강, 성령의 강, 실천의 강’이 마른다. 그러면 <마음의 땅>과 <행실의 땅>이 주름지고 갈라진다. 꿈에 ‘자기 혼’을 보아라. 얼굴에 주름이 지고 몸이 처지고 늘어져서 영양이 없는 자갈이 보이는지 살펴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안 보고, 말씀을 먹지 않고, 개성의 사명의 일을 잘 안 하는 자들은 ‘마음과 생각’이 주름지고, ‘육신이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약한 몸’이 된다.

16. 어떤 자들은 주를 떠나 자기 육성대로 흘러가서 신앙은 관심 없이 하고 자기 일만 하니, ‘육의 일’은 잘됐다. 그러나 더 ‘육의 일’에 빠져서 하다가 ‘모은 것’을 다 날리고 빈 몸이 되기도 했다. 육도 영도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17.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육의 일을 하는 만큼 그 일이 잘된다고 하지만, ‘육의 일’이 잘되고 ‘영은 사망의 지옥’으로 가면 무엇이 좋으냐. 일생을 ‘지옥에 가기 위해 산 자’가 된다.

18. 인생 일생을 축소하여 ‘하루’로 보자. 하나님과 주를 떠나 ‘육의 일’을 하면서 ‘육’이 잘되고 ‘각종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며,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 종일 잘 먹고 살았다 하자. 하루가 지나니 행한 대로 <그 육신>은 ‘시체’가 되고, <그 영>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으로 갔다 하자. 하루 종일 잘 먹고 영광을 누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됐느냐.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19. 전능자 하나님과 그 보낸 메시아를 믿고 육도 영도 잘되면, <육>이 기쁨과 사랑으로 살고, 육이 죽으면 <그 영혼>은 ‘자기 마음과 생각’과 한 몸이 되어 즉시 ‘천국’에 가서 이상세계를 누리니 얼마나 좋으냐. 인생 일생으로 길게만 보지 말고 ‘하루’로 보고 살아라. <하루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육과 영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제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모르면 <이 세상 육의 황금 시간>을 ‘죽음의 운명’ 속에서 화려하게 쓰고 끝난다. 그리고 그 영이 ‘사망의 입’으로 들어가서 하수도 속 같은 곳에서 살고, 지옥 불에서 산다. <알고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지 깨달아라.

20. 섭리사에 오면서 힘들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과 시련을 겪기도 한다. 힘들고 핍박을 받았다고 섭

리사를 나가겠다고 했던 자들은 ‘생명책에 붉은 줄’이 그어져 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도 주도 ‘위험인물’로 보고 대한다. 그런 자들은 맹세하며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고 죽어도 섭리사를 안 나가겠다고 해야 ‘생명책의 붉은 줄’이 지워진다. 하나님도 주도 ‘위험인물’에게는 투자를 안 하신다.

21. 어디까지 만들어야 ‘육신 인생’이 변치 않겠느냐. 완전히 다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관권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안 변한다. <휴거된 영>이라도 ‘낮은 단계의 휴거를 이룬 자들’은 ‘육신’이 변하여 결국 ‘휴거된 영’이 황금성에서 내려온다. 그러다 ‘육’이 열심히 하고 복직하여 ‘영’이 다시 황금성에 올라가기도 한다. 자기가 볼 때 700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700선>을 넘어가야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자의 값>은 ‘황금 덩이 값’이다. <변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아직은 ‘금 같은 자’가 못 된다.

22. 휴거 후에 이성 타락을 한 자를 보니, 그 영이 휴거되어 황금성에 올랐다가 땅에 내려와 있었다. ‘휴거 미결의 영’이 되었다. 조건을 세우고 복직하여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보였다. <휴거를 상실한 영들>은 마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성 타락이 아니어도 <육>이 ‘휴거 생활’을 안 하면, <영>이 점점 차원이 떨어지다가 땅에서 돌아다니게 된다. <휴거>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는 일’이다. <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는 ‘휴거되지 않은 자’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자’이시다. 고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체’가 되지 않고서는 ‘휴거’되지 않는다. 휴거되고도 차원이 낮고 휴거 생활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변하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듯 한다.

23. 결혼했어도 보통으로 사랑하면 보통으로만 살듯이, 휴거됐어도 보통으로 살면 ‘보통 신부’가 된다. 그러다 <그 위치>에 ‘다른 자’가 서게 된다.

24.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약하면, ‘만사의 모든 것’이 약하고 ‘신앙’이 약하다.

25. <하나님과 주와의 교통>이 약하면, ‘만사’가 약하다.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해야 ‘답’이 생각난다.

2. 모든 것이 ‘생각’해야 답이 생각나고, 잊은 것도 찾게 되고, 할 일도 알게 된다. 고로 각종 문제들을 놓고 ‘생각’해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

3.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다. 고로 자꾸 ‘생각’하라는 것이다.

4. 어떤 일을 놓고도 ‘생각’해야 ‘답’이 생각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생각해야 답이 온다.” 하셨다.

5. <몸>으로 행할 것은 ‘행해야’ 일이 진행되고 해결되듯이, <생각>은 ‘생각해야’ 일이 해결되는 답이 온다.

6. <생각하지 않는 자>는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할 일이 되기를 바라는 자’와 똑같다.

7. 문제가 있든지, 하던 일이 막혀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생각’해야 답이 온다.

8.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집중’하여 생각해라. 그러면 ‘답’이 온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은 ‘생각이 죽은 시간, 죽은 상태’와 같다.

10. 어떤 것을 잊었으면 눈을 뜨고 자꾸 봐야 생각나고 알듯, 생각도 자꾸 해야 더 좋은 생각이 난다.

11. 눈을 감으면 안 보이듯, 생각을 안 하면 답이 안 보인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시간은 ‘사랑이 죽은 시간, 사랑이 죽은 상태’다.
13.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실체’가 되어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생각’을 보시고 거기에 따라 행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전지전능하신 삼위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
14.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생각만 하고 있어도 삼위는 확실히 아신다.
15. <몸>이 행하면 ‘행하는 대로’ 그 행동이 보이듯이,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그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행동이 되어 보여진다.
16.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욕이 짓는 죄>를 ‘생각의 죄’와 ‘행위의 죄’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보신다. <의>도 그러하다.
17. <혼과 영이 짓는 죄>도 ‘생각의 죄’와 ‘행위의 죄’로 구분된다. <의>도 그러하다.
18. <육>으로는 생각해도 ‘그 생각’이 선악 간에 구분되어 눈으로 안 보인다. 생각을 집중하면 ‘느낌’만 온다.
19. 기도를 깊이 하고 영적으로 신령하여 ‘영의 눈’으로 보면, 꿈에서나 평소 기도하는 중에 상대가 생각한 선악 간의 생각들이 ‘실체화’되어 ‘행위’로 보인다.
20. 생시에 <그 사람의 욕>은 말과 행위가 그렇지 않았는데, 꿈에서 보면 그 혼이 자기를 미워하고, 생각지도 않은 행위를 한다. 상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실체화’되어 보인 것이다. 고로 깨닫고 알고 처신하라는 것이다.
21. 생시에 가까이 지내는데도, 꿈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모르는 척 대하고,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그 마음과 생각의 실체’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22. <자기가 믿고 따르는 주>도 자신이 가까이에서 대하는 줄로 알았는데, 꿈에 보면 생각보다 가까이 안 가지게 된다. 이는 자기가 주를 대하는 ‘마음과 생각 상태’가 실상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23. 자기 생각과 실상은 다르다.
24. 진정으로 간절한 삶을 살아야 꿈에서도 주와 가깝게 지낸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그와 같이 가깝다는 것이다.
25. <간절히 하는 것>이란,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한다.’ 함이다.
26. <간절히 하는 것>이란, ‘간이 저릴 정도로 하는 것’이다. 마치 배추에 소금 간이 배어 절도록 하듯, 자기 마음과 생각의 간절함이 삼위와 주의 마음에 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꿈에서도 삼위와 주와 가까이에서 같이 먹고 즐기고 일체 되어 행하고 사랑한다.
27. <말씀>은 항상 삼위가 주에게 먼저 생활 가운데 겪게 하시고, 주를 통해 모두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28. 귀에서 크게 소리가 나도, 옆에서 크게 이야기를 해도, TV를 크게 틀어 놓아도,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들린다. 뇌신경은 ‘집중’하고 ‘생각’한 것만 들리게 되어 있다. 안 보면 안 보이듯, 생각을 안 하면 안 들린다.
29. <생각>에 따라서 소리가 더 잘 들리기도 하고, 덜 들리기도 하고, 아예 안 들리기도 한다.

30. 탄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 이야기한 것을 전혀 못 듣는다.

31. <생각>으로 ‘듣는 것’도 좌우된다.

32. 이곳에는 시간이 되면 항상 듣기 싫은 라디오 방송이 나온다. 글 쓰고 기도할 때 사탄들같이 방해가 된다. 어느 날은 말씀을 받아쓰는데 방송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와서 ‘오늘은 고장이 나서 안 나오는구나.’ 하고 좋아서 계속 말씀을 썼다. 다 쓴 후에 허리를 펴고 있는데 가늘게 라디오 방송 소리가 났다. 그러다 평소같이 크게 소리가 났다. 확인해 보니, 방송은 제시간부터 나와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생각을 집중하니 뇌신경이 집중하는 쪽으로 쏠려서 탄것은 전혀 안 들렸던 것이다.

33.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봐도 제대로 못 본다. 전혀 안 보인다.

34. 한번은 모임을 하고 서로 악수도 하고 헤어졌는데, 후에 모임에 와야 할 자가 안 와서 물어보니 왔었다고 했다. 생각을 안 하고 보니 악수하고 봤어도 몰랐던 것이다.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뇌가 기억을 못 해서, 눈으로 봤어도 그 사람이었는지를 전혀 모른다.

35. 월명동 지역 ‘백보좌 형상’과 ‘초승달 형상’도 먼저 생각하고 봐야 그 형상과 모양이 잘 보인다.

36. <주>라도 자기 생각을 깨우고 봐야 주가 보이고 느껴지고 깨달아진다. 그냥 보면 생각이 탄 데 있으니 봐도 모른다. 고로 말씀을 가르쳐 주고 깨우쳐 줘야 된다.

37. 생각을 안 하면, 음식 냄새가 나도 전혀 못 맡는다. <냄새>도 후각을 통해 ‘생각’으로 전달돼야 맡아진다. 모두 <생각>을 통해 알게 된다. <생각>이 ‘생명’이다.

38. 밥 먹으면서 몇 개라도 귀한 잠언을 쓰려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고 밥을 먹으니, 밥맛도 안 나고 음식 냄새도 전혀 안 났다. 잠언을 다 쓰고 나서 다시 밥 먹는 데 집중하니, 그제야 음식 냄새가 나고 밥맛도 났다. <생각>을 탄 데 집중하고 있으면 봐도 제대로 안 보이고, 들어도 제대로 안 들리고, 음식을 먹어도 맛도 냄새도 모른다. <생각>이 이같이 ‘생명 역할’을 한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39. 설교 때 그리 심정 타게 외치고 열심히 전해도 <듣는 자들의 생각>이 탄 데 있으면 전혀 안 들리기도 하고, 들리기는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40. <생각>을 집중하면, 옆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이 신경 쓰이지 않고, ‘집중하는 것’만 보이고 들리게 된다.

41. <생각>을 집중하면, 잡생각이 사라진다.

42. 말씀을 쓰려고 하는데 생각의 집중이 안 돼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며 내 생각 좀 때려 달라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생각을 때린다고 되느냐. 몸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거나 자극을 주어 제대로 하게 하지만, 생각은 들어서 해결하는 것이다.” 하셨다.

43. 이때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은 뜻과 목적을 두고 온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감동시키며 합당하게 들어서 행하시는구나.’했다. 그리고 ‘불의한 행위를 하는 육신은 때려서 심판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관한 것도, 사람에 관한 것도 이와 같이 행하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말을 안 듣고 행하는 것을 보시고 “매를 더 맞으려고 그리하느냐.” 하셨다. <매>는 ‘고통의 매’와 ‘말씀의 매’다.

44. 기도할 때 집중하고 깊이 들어가야 ‘잡생각, 잡념의 주관권’에서 벗어난다.

45. 열차 기적 소리, 뱃고동 소리가 옆에서 크게 들려도 그 순간 생각이 탄 데 가 있으면, 안 들려서 못 타기도 한다.

46.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어느 순간 비행기 소리가 안 들려서 ‘이제 비행기가 높이 떠서 제 속력으로 가니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했다. 알고 보니, 그 순간 옆에 있는 자와 대화에 빠져서 안 들렸던 것이었다. 비행기 엔진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다.

47. 집중하고 생각해야 잘 들리고, 잘 보인다. 집중하고 생각해야 하는 일도 잘된다.

<2017년 7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48. 사람은 ‘생각 값’이다. <생각> 따라 빛이 난다.

49. 하나님은 ‘생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50. <생각>으로 ‘행실’이 나오게 되고, <행실>로 인해 ‘혼’도 ‘영’도 변화된다.

51.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모두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된 곳으로 나갔다.

52. 생각을 잘했을 때는 잘된 곳에 있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된다. <차>도 잘못되면, 잘못된 곳으로 가서 사고 낸다.

53.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한다.

54. 사탄도 생각을 그릇되게 틀어서 자기 주관권으로 끌고 간다.

55. <생각>에 따라 ‘그 행위’가 좌우되고, <행위>에 따라 ‘혼’도 ‘영’도 변화되어 차원이 높아진다.

56. 이성을 사귀거나 불법을 행할 때도 제일 먼저 ‘생각’에서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때 즉시 생각을 꾸짖고 제지해야 안 하게 된다.

57. 잘못된 생각도 처음에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다 점점 그 잘못된 생각이 커진다.

58. 불의의 생각을 못 참고, 자기 생각대로 불의를 행하고 해를 받는다.

59. 섭리사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나간 자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못 참고 이성 사랑, 술, 각종 세상의 것에 생각이 쏠려서 수시로 불법을 행하다 나갔다. 그때는 거기에 생각이 쏠리고 흥분되어 본정신을 잃고 행한다. 그러다가 본정신이 돌아오면 ‘왜 하나님이 나 안 막아 주셨지? 주도 탄 자들도 왜 안 막아 주었지? 내 힘으로 못 막으니 막아 주었어야지...’ 하며 원망하고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할 수 없지. 내 마음대로 사니 여기가 더 좋다.’ 하며 포기하고 산다. 그러나 그 육도 영도 사망권의 삶이다. 허전하고 허무하고 곤고하다. 그러니 늘 자기들끼리 뭉쳐서 먹고 마시며 악평하고 헐뜯으며 그것을 즐기면서 산다. 때가 되면 적나라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나갈 자들이 모두 나간 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6000년 구원역사 동안 계획한 <창조 목적>, 이 시대 최고로 베푸시는 <휴거 역사>를 말씀으로도 선포하시고 끝까지 견딘 자들과 함께 행하셨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대하신다.

60. 극적인 환난과 핍박을 다 겪고, 하나님이 보낸 자도 세상의 죄 짐을 다 지고 조건 세우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과 해야 될 것을 다 하고서야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없는 <최고 영광의 역사>, ‘영’이 삼위와 주와 영원히 살아가는 황금성 천국에 이르는 <휴거 역사>를 하셨다. 2012년부터 극적으로 휴거를 준비시키고, 이 땅에 시대 사명자를 보낸 지 70년 되던 해, 성자가 세상에 오신 지 70년 되던 해인 2015년 3.16에 휴거 역사를 진행하여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성경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한 날이었다.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61. <생각>이 '기억'하게 한다. <생각>에서 기억하지 않으면, 봤어도 모른다.
62. 음식을 먹었어도 '생각'에서 '기억'하지 못하면, 먹었는지 모른다.
63. <생각>에서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자꾸 기억하고 생각해야 전능하신 삼위와 통하여 자기도 '신적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되고, '기억'도 잘하게 된다.
64. <생각>이 '생명'이다. '육신의 신'이다.
65. 생각을 통해 들리고, 보이고, 맛도 느낀다.
66. 신경으로 맛을 느껴도 '생각'에 전달이 안 되면 먹어도 맛을 못 느낀다.
67. 생각을 안 하면 겪어도 못 느낀다.
68. 생각에 따라 망하고 흥한다.
69. <생각>을 예리하게 해라. 크게 해라. <생각>을 잘하고 실천하기다. 표상자는 전능자 생각대로 해야 된다. 늘 그의 말씀을 들어라.
70. <무딘 생각>은 '무딘 칼'과 같다. 고로 잘못된 생각을 끊으려 해도 예리한 칼같이 못 끊는다.
71. <무딘 생각>으로는 '자기 모순'을 확 못 자르니 그 모순이 한 달, 1년씩 간다.
72. 어떤 자는 자기 모순이 10년, 20년, 30년, 40년씩 가도 못 자른다.
73. <자기 생각의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꿈에서 보고 확인해라.
74.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75.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면, <자기 생각>도 '예리한 검'이 된다.
76. <예리한 생각>으로 선과 악을 알고 쪼갬다.
77. <예리한 생각>이 '보화'다. <예리한 생각>으로 잘되고 형통한다.
78. <하나님의 말씀>을 뇌 과일에 쑥 넣고 매일 자기 생각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야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
79. 뇌 과일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니 온전히 못 다스린다.
80. <육신>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생각>이 흐리멍덩하고 세상 육적인 것에 쏠려 있으면, 전능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알아주지 않으신다.
81. 겉보기에는 멋없고 아름답지 않아도 <생각>이 예리하고, <생각>이 삼위와 주를 향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귀히 보시고 귀히 쓰신다. 그 '영'이 빛나니,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82. <생각>이 흐린 상태에서 꿈을 꾸면, 꿈조차 흐리게 보인다.
83. <생각>이 흐린 상태에서 행하면, 무엇을 해도 제대로 안 된다.
84. <생각>이 ‘육과 혼과 영’에게 막대한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
85. <생각>이 ‘시대 말씀’에 확실히 서지 않고 흐리멍덩하면 신부 자격이 없다.
86. <생각>은 ‘해’같이 뚜렷하고, <행동>은 ‘전쟁터의 군인’ 같아야 된다. (요즘 군인들 일부는 쌀뜨물에 나무를 담가 놓은 것 같다. 그러면 그 나무가 6월 여름철 엿가락 같아진다.
87. 휴거된 자, ‘신부’라는 자가 <생각>이 여름철 논두렁에 뛰어다니는 메뚜기만큼도 뚜렷하지 못하다. 심령이 살고 휴거됐으면, 지령이같이 꾸물대고 행하지를 않는다.
88. 메뚜기는 풀잎 위에 높이 올라갔어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잘라 먹지 않는다. 풀잎을 잘라 먹으면 그 위에 올라앉은 자기가 밑으로 떨어지니, 실 가닥같이 얇게 한쪽을 남기고 좌우로 뜯어 먹으면서 내려온다. 이와 같이 메뚜기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데, 미련한 자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해를 당하고, 다치고 죽기도 한다.
89. 생각을 집중해야 지혜롭게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행한다.
90. 하는 것 하나만 목적하여 행하지 말고, 안전도 생각하며 행해라.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91. 돼지는 ‘고기 값’, 사람은 ‘생각 값’이다.
92. 매일 <주의 말씀>을 중심해서 행해야 생각이 뚜렷해지고 총명해진다.
93.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최고의 말씀을 그리 쥐도 생각이 흐리멍덩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생명권을 나가게 된 것이다.
94. 섭리사에서는 <전능하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니 귀히 대함을 받았지만 ‘신부 주관권’을 벗어나면 역시 한 인간에 불과하다.
95. 생각이 흐리고 약한 자는 <생각의 엔진>이 ‘자전거 엔진’같이 약해서 따라오다 만다. ‘비행기 엔진’을 달아야 비행기를 움직이듯 ‘생각의 엔진’이 강하고 튼튼해야 하나님의 신부 역사에서 자기를 움직이며 뛰고 난다.
96. 비행기 엔진을 달아야 비행기를 움직인다. 늦더라도 다시 ‘생각의 엔진’이 강하고 튼튼한 후자를 키워라.
97. 후자는 더 강하고, 담대하고, 생각의 차원이 높고, 생각이 다르다.
98.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생각’이 뚜렷하고 확실한 자를 뽑아서 키우고 쓰신다.
99.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얼굴과 몸은 일반 사람과 별다르지 않는데, <생각>이 다르다. 신이 되는 말씀, 곧 하나님께 ‘시대 말씀’을 받았기에 <생각>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100. 섭리사를 악평하는 자들은 인생도 생각도 모두 ‘비정상’이다.
101. 악평 자체가 ‘비정상’이며, ‘하나님의 심판 거리’다.

102. 악한 자들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과 지옥’이다.

103.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으니, 육신이 살면서 ‘영’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황금성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104.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서서 뚜렷한 자’가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이루어 휴거되고, 휴거를 상실하지 않고 계속 차원 높여 행하고, 삼위의 완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그 ‘영’이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105. 천국에서도 <황금성 천국>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곳들 중 더 이상 없는 가장 최고의 곳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땅에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와 일체 되어 행함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황금성, 가장 높은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6000년 구원역사 이래 더 이상 없는 최고 영광의 역사다.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휴거 역사>다.

106. <휴거의 영>은 삼위일체의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태다. <휴거>가 최고다.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07. 잘해야 잘된다.

108. 잘하면 잘할수록, 잘된다.

109. 불가능한 일도 잘하면 잘된다.

110.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특별히 뜻이 아닌 것과, 하면 해가 되어 내가 상황을 트는 것만 제외하고, 그동안 했는데 안 된 것은 자기가 잘 못해서 안 된 것이다.”하셨다.

111. 잘했으면 잘됐는데, 잘 못해서 안 됐다.

112. 목회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관리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교회 경영과 운영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생각도 잘하고, 구상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확인도 잘하고, 분별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말도 잘해라. 그러면 ‘잘하는 만큼’ 형통하고 성공한다.

113. 잘하려면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반복해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능숙해진다.

114. <생각>이 ‘의’에 강하고 담대해야 잘하게 된다.

115.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잘하게 된다.

116. 삼위와 주와 함께 해야 잘하게 된다.

117. 과거에도 ‘잘한 것’만 잘됐지, ‘잘 못한 것’은 잘 안 됐다.

118.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해야 잘하게 된다.

119.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해야 잘하게 된다.

120. 국가 대표 선수들도 잘하려고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해서 연습한다. 그같이 싸우고 견뎌서 이겨야 금메달을 딴

다. 모두 신앙에 있어서도 그같이 해야 '신앙의 금메달'을 따는 자가 된다.

121. 이 좋은 때에 잘해야지 언제 잘하려고 하느냐.최고 좋은 '휴거의 때'에 정말 잘해야 된다.

122. 잘하면, 보화도 찾고, 좋은 성전도 찾고, 휴거 700선까지 올라가고, 전도도 올해가 가기 전에 하게 되고, 황금성 천국도 가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하게 된다.

123. <잘하는 것>이 '잘되는 비법'이다.

124. 선생이 10대, 20대 때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 삼위는 "행할 때 생각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라." 하셨다.

125. 삼위는 도우실 때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잘되는지 깨닫게 하고 본인이 행하게 하여 잘되게 해 주신다.

126. 잘못된 행위는 돕지 않으신다.

127. 바위 절벽 길을 갈 때 '집중'해서 발을 잘 디뎌야 하듯, 만사도 '집중'해서 잘해야 잘된다.

128. 삼위도 주도 일을 '잘하는 자'에게 큰일을 자꾸 맡겨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129. 모두 잘해서 남은 한때에 못 한 것을 얻고, 다시 오지 않는 이때를 미련 없이 보내라.

130. <휴거 차원>을 높이려면, '잘하기'다.

131. 무엇이든지 잘되려면, '잘하기'다.

132. <생각>이 '답'이다. <생각>에서 '답'이 온다. <생각>을 놀리지 말고 해라.

133. 어떤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해 계속 생각했더니, 원하던 것을 혼으로 찾게 되었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셔서 찾게 되었다. <생각>이 '보화'다. <생각>으로 삼위와 연결된다. ◎ 잠언 6시간 동안 썼다. 교정 1시간 반 해서, 총 7시간 반 걸렸다.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옆의 사람은 귀하고 중한 것을 알고 감탄하며 기절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2. 모르는 자는 '생각이 잠든 자'다.

3. <모르는 자>는 몰라서 울고, <아는 자>는 기뻐하며 잔치한다.

4. <기도>가 귀한지 모르면, 시간이 있어도 안 한다.

5.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는 것>을 안 하면, 일반 사람과 같다.

6. 몰라서 슬퍼하며 울지 말고, 배우고 알고 기뻐하며 살아라.

7. <꿈에 높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것>은 '육신이 기도생활 하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8. <꿈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어린아이들과 각종 사람들>은 '자기를 방해하는 영들'이다.

9. 꿈에 '내 앞에 나와 겨루는 자'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내가 가는 길을 계속 따라왔다. 제재해도 따라왔다. 결국 나와 다투다가 내가 그를 손발로 밀치고 찼는데, 생각으로만 되지 내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때가 '잠에서 깬 시간'이었다. 꿈에서 간신히 그를 밀치고서 한 집에 들어가다가 잠에서 깬다. 더 자려고 하다가 일어났다. 잠에서 깬 시간에 육신이 잠을 자니, 나와 겨루는 자가 같이 있으면서 내가 못 일어나게 방해했다. 제시간에 일어나지지 않을 때는 비몽사몽간에 번뜩 자기와 겨루는 자를 이기고 일어나야 된다.

10.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안 하면, 일반 사람과 같다.

11. <평소 생각보다 더 좋은 다른 생각>은 '차원 높은 생각'이다. 이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기도 하고, '자기 혼과 영'이 깨닫게 해 주기도 한다.

12. <조금 더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에 달려가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13.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더 해라.

14. 깨달아지지 않으면 기도를 해라.

15. 어느 지역이든지 <핵심지>는 '머리'라고 한다.

16.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앞에 놓고 행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어 인식하게 해 주고, 그 후에 '목적한 일'을 행하신다.

17. 거짓말을 안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를 보면 충격이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생활'로 한다. 그 거짓말을 믿는 자는 속고, 안 믿는 자는 안 속는다.

18. <거짓말>은 '실체'가 아니니 결국 그 말대로 되지도 않고 다 드러나서, 거짓말로 남에게 해를 준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

19. <마음>을 깨끗이 씻고 닦고 청결하게 해라. 그러면 '생각이 청명'해져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20. 자기가 가는 인생길에서 <여건이 갖춰진 곳>이 '자기에게 좋은 자리'다.

21. 자기가 가는 인생길도 아닌데 자리만 좋으면, 효력이 없다. <섭리역사 길에서 좋은 자리>다.

<2017년 7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처음에는 미약하듯, 처음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른다. 가다 보면 점점 알게 된다.

2. <큰일>도 처음에는 작은 데서 시작되어서 점점 크게 된다.

3. 섭리사도 처음에는 '한 명'에서 시작되었다. 역사도 나무 크듯이 커야 된다.

4.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커진 것이다.

5. <현재 크게 할 것>은 크게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작은 것'도 심어 놓아라.

6. 옛날에 했기에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지금은 지역이 커져서 땅도 없고 건물도 없다.

7. 교회도 옛날에 지었기에 그 땅에 교회를 지었지, 지금은 못 짓는다. 고로 단점이 있어도 살 때가 있다.
8. <지혜>는 ‘판단’이다. 장단점을 따질 때 <현재>만 놓고 따지면 ‘단점’이 크지만, <미래>까지 따지면 ‘장점’이 크다. 교회도 이렇게 따지면서 산다.
9. <성자의 욕이 되어 다니며 복음의 조건을 세운 곳>은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교회>는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자들이 거할 처소’다.
10. <하나님>이 따지듯 따지면 ‘밭에 감춰진 보화’이고, <자기 육성>으로 따지면 ‘산에 감춰진 조상 묘 속의 질항아리’다.
11. 하나님은 현재보다 ‘미래’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름진 땅, 번영한 갈대아 우르’에서 ‘삭막한 땅, 조용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조건을 쌓았고, 그로 인해 당세에 자기도 잘되고, 후에 후손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형통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중심으로 구약 역사를 펴 나가셨다.
12. <당세를 위해 세운 사명자>가 있고, <후대를 위해 세운 사명자>가 있다.
13. <섭리역사 당세>는 ‘주를 중심으로 과거에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우며 현재에도 주와 함께 행하며 누리고, 미래를 위해 해 놓고 가는 시대’다.
14. <과거에 세우지 못한 조건을 세우는 시대>는 ‘보화 시대, 영광의 시대’다.
15. 시대를 보면 ‘씨를 뿌리고 과일 묘목을 심는 시대’가 있고, 그때를 사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가꾸는 시대’가 있고, 그때를 사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황금벌판, 오색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시대’가 있고, 그때를 사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은 항상 ‘황금기’에 <창조 목적, 휴거 역사>를 펴신다.
16. 섭리역사 자체로 볼 때도 시기가 구분된다. <조건을 세우는 시기>다. 1978년부터 1999년까지다. <부활기>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역사를 위해 주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속하고 청산하여 생명을 살리는 조건의 시기>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다.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극적으로 일어나며 휴거의 조건을 세우는 시기>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다. 2015년부터 <휴거 역사>를 이루고, 그 후부터는 <휴거의 삶>을 사는 시기다. 이때는 ‘옛것을 깨끗이 장사’ 지내고, ‘육신 쓰고 오시는 하나님을 맞는 준비’를 하고, ‘부활되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시기’다. 이때는 <성자>가 떠나셨으니 <성령>이 오셔서 ‘주의 몸’을 쓰고 행하신다. 그리고 ‘사명자들’을 통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욕’을 쓰고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때 마치 결혼한 자가 집을 장만하듯,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을 섭리사에 주시는 기간’이다. 이때는 <성약권 가나안 복지로 완전히 들어오는 기간>이다. <주가 십자가를 지는 기간>도 쪼개어 보면, 3년씩 3단계로 차원 높여서 왔다.
17. <핵이 되고 뼈대가 되는 말씀>을 가르쳐 줘야, 거기에 해당되게 행하면서 영혼의 살이 찐다.
18. <뼈대>는 ‘교리’다.
19.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것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무지하면, 그같이 각종으로 당한다.
20. 아는 자들이 가르쳐 주어야.
21. 사기꾼의 말을 받아들여 사기를 당하듯, 악평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한다.
22. 빛진다고 건물을 못 사면, 평생 사기 힘들다. 빛으로 건물을 사니, 실상 빛도 아니다. 건물이 그 값을 하기 때문이

다. 운영만 잘하면, 빚지고 사도 빚이 아니다. 처음에는 빚 때문에 자기 건물이 아니지만, 운영을 잘하여 흑자가 되면 점점 자기 것이 되어 간다.

23.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알기에 하게 된다.

24. 장단점의 저울추가 좌우로 오고 갈 때는 '판단의 지혜'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운영의 기술'이다.

25. 파는 자와 사는 자가 팽팽하다. <파는 자>는 팔아서 판 것을 가지고 운영해서 이익을 보게 해야 하고, <사는 자>는 그것을 사서 운영하여 이익을 보게 해야 된다.

26. 하나님은 앞날을 아시니, '앞날에 형통하여 많이 얻게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신다. 파는 자가 어려워서 '제값을 못 받고 파는 때'를 아시고, 그때 역사하여 보다 험하게 사게 하신다.

27. 모르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인다.

28. 지혜자는 '지혜'로 안다.

29. 생각만 하고 안 하면, 생각하나 마나다.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만물이나 사람이나 그 존재의 정식 순리의 법칙이 있다. 이를 벗어나면 고통을 받게 된다. 복직하지 못하면, 수한대로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2.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가만히 있을 때와는 달리, 한 번 움직여 활동하면 일순간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3. 배우면, 신같이 알게 된다.

4. 지능이 높은 자는 지능이 낮은 자를 본다.

5. 지능이 낮은 자는 지능이 높은 자를 못 본다.

6.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 주신 표적'과 '주와 함께 행한 것'과 '자기가 행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주도 사람들도 만물도 대한다. 잊고 대하니, 하나님께나 주께나 사람들에게나 실수하게 되고, 사고도 나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

7. <겪고 배운 것>이 '신'이 되게 한다. 잊지 말고, 현실에서 필요할 때마다 늘 써라.

8. <어제 겪은 것>도 잊고, <지난주에 겪은 것>도 잊고, <지난달에 겪은 것>도 잊고, <작년에 배우고 겪고 행한 것>도 잊고 사니 '해'도 받고 '갓은 고통'도 받는다. <과거에 배우고 겪고 행하여 얻은 것>을 생각해야, 그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행하니 또 얻게 된다.

9.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국 서해안 밀물을 멈추신 것>과 <말레이시아 포덕슨 해변의 밀물을 멈추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왜 밀물을 멈추셨는지 다시 생각하게 하셨다. 1995년 8월 15일, 한국과 일본이 민족 간의 감정을 없애고자 1200명의 청년들이 <한국 서해안 몽산포>에 모여서 서로 화목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두 팀으로 나누어 배구를 했다. 그때 서서히 밀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데는 1200명이 모여서 운동할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밀물이 들어오다가 멈췄다. 꼭 할 일을 두고 간절히 간구하며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하면서 삼위께 영광 돌리니, 밀물이 멈췄다. 그리고 2001년 8월 말

에서 9월 초, 전 세계 섭리인들이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 모여 행사를 했다. 어느 날 낮에 오물이 많던 포딕슨 해변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깨끗이 치우고, 소수의 무리를 놓고 ‘말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세 때 행하신 일들>을 선생이 직접 보고 와서 증거하며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고, 이날도 행할 일을 행하신다고 증거하며 외쳤다. 한창 증거하고 있는데, 밀물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뒤에 있던 자들은 물이 차오른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밀물이 들어오는 지점에 나무 지팡이와 삽을 꽂아 놓고, “걱정 말고 계속 말씀을 듣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이 끊기면 언제 다시 이 말씀을 할지 모른다. 바닷물이 다 들어올 때까지 듣자.” 하며 계속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했다. 그때 밀물이 들어오다가 멈췄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탄했다. 이 잠언을 쓰는 날 새벽에 이 표적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제는 그런 표적은 없겠지요?”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 시대의 할 일>을 두고 표적을 행한다.” 하시며, <만물>을 통해 ‘계시 표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그 계시대로 표적을 행하여 얻게 하셨다. (어떤 표적인지는 곧 모두 눈으로 보게 된다. 그때 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조해 보아라.)

10.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신다.

11.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진정 사랑하며 할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표적’을 행하신다. 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되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주어 섭리인 모두 쓰게 하신다.

12.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크고 작은 표적’을 행하신다. 표적이 작든지 크든지 ‘삼위일체가 함께해 주심’이 얼마나 크냐.

13. <표적>에 대해서도 배워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표적을 행하셔도 안다.

14. 삼위일체가 ‘표적’을 행하시면,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며 ‘표적’에 대해 더욱 자세히 배워라. 삼위일체가 ‘표적’을 보이며 함께하실 때 옆에 가까이 계시니, 그때가 물어보고 더 자세히 배울 기회다. 때 지나면 자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더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결혼식 전>에는 그렇게 서둘러 준비하라고 하지만 <결혼식 후>에는 그런 말을 안 하듯이, <휴거 이야기>도 한창 휴거될 때는 성자가 그리도 재촉하시더니 이제는 안 하신다. 이제 그때는 지났으니 각자 <휴거 차원>을 높이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말씀하신다. 이제는 <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이에 해당되는 것을 재촉하며 말씀하시고, <지금 행할 것>을 말씀하신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시며, <자신이 시대의 불신으로 인해 죽을 것>과 <3일 만에 영으로 살아날 것>에 대해 말씀했다.

2. <요나의 표적>은 곧 ‘행한 대로 보여 주는 표적’을 말한다. 이 말씀대로 <주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영광과 축복의 표적’을 보이시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심판의 표적’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주를 대하는 행위’대로 표 나게 표적을 행하신다. <아는 자>만 ‘하나님의 표적’을 알고 동참한다.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생활’로 본다.

3. 하나님은 일점일획도 빠짐없이 <하나님 편, 선에 대한 것>은 ‘축복의 표적’으로 대하시고, <사탄과 세상 편, 악에 대한 것>은 ‘심판의 표적’으로 대하신다. 모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받는다.

4. <표적과 징조의 소경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100% 모르거나 일부만 안다. <섭리사에서도 표적과 징조의 소경들>은 ‘섭리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도 ‘개인에게 행하시는 표적’도 일부만 안다. 일부만 알면, 일부만 차원을 높인다. 100% 알아야, 100% 차원을 높이고 100% 얻게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행하심>을 알고 제때 <주의 즐거움>에 동참하려면, ‘주와 일체’ 돼야 한다.

6. <불의>에 동참하면서 주가 모르는 줄 알고 계속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대하신다.
7. <주의 일에 동참하고 주와 일체 된 삶>은 ‘표적을 일으키는 삶’이다.
8. <주의 생각과 일체 되어 주와 늘 교통하는 영적인 삶>은 ‘신령한 표적의 삶’이다.
9. <제시간에 할 일을 꼭꼭 하고 사는 삶>은 ‘표적을 일으키는 삶’이다.
10. 편하다고 몸도 자세도 편하게만 하다 보면, 몸 전체의 균형을 잃어서 몸이 틀어지고 결국 건강 문제가 일어난다. 신앙도 그러하다. 그때마다 편한 대로 살면, 결국 신앙의 균형을 잃고 문제가 일어난다.
11. 항상 <자기 생명>이 존재하고 있으니, 항상 <자기 생명>을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 그래야 ‘생명이 사는 표적’을 보게 된다.
12. 음식을 먹고 이를 쓰면 꼭 이를 닦듯이, 몸도 쓰면 치료해야 된다.
13. 신앙생활을 해도 ‘정상적’으로 안 하면, ‘질서의 법’을 벗어나서 결국 ‘문제’가 생겨 ‘고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질서의 법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는 자>가 ‘영이 생명권에 거하는 표적을 일으키는 자’다.
14. <전능하신 하나님과 주 앞에 자기 할 일을 못 하는 것>이 ‘죄’다.
15. <할 일>을 해야, 그제야 ‘할 일을 못 해서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된다.
16. <삶의 지혜>는 이리저리 해 보면서 알게 된다. 이리저리 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알게 된다.
17. 찾으면, 그 주관권 안에도 ‘더 좋은 것’이 있다.
18. 하나님은 <하찮은 것>을 가지고 <큰 것>에 대해 비유하시며, <하찮은 그것>과 <큰 것>을 연결하여 깨우쳐 주신다. <작은 것>으로 ‘비유의 표적’을 보이시나, <실제로 얻는 것>은 크고도 크다. 어느 때는 <곤충 한 마리>를 가지고 ‘계시의 표적’을 보이시며 <큰 건물>을 사게 하신다. <비유로 드는 것>은 작아도 그것이 ‘실체의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19. 사람이 꼭 할 일을 안 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여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편한 자리’가 그리 귀하고 크다.
2. <편한 자리>가 아니면,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한다. <편한 자리>가 아니면, 몸이 저리고 아파서 그리도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편하게 살려고 ‘편한 자리’를 얻기 위해 그리도 노력한다.
3. <앉는 자리>가 딱딱하면, 자기 몸이 눌러서 불편해진다.
4. 하나님은 인간이 ‘앉을 때 편하도록’ 인간의 구조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고로 ‘백보좌같이 편한 자리’를 인간의 구조에 넣어 창조하셨으니, 곧 ‘영덩이’다. 그래서 몸 중에서 영덩이 살을 최고로 두껍게 하셨다.
5. <사람의 영덩이>가 ‘하나의 편한 의자’다. 더 이상 없는 하나님의 편한 백보좌와 같다. <그다음으로 편한 의자>는

‘저마다 앉고 쉬고 자는 집’이다. <집의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자기를 편하게 해 주느냐.

6. <삶의 위치와 자리>가 중요하다. 죽은 사람도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좋은 명당자리’를 찾아서 ‘뒹자리’로 쓴다.

7.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도 ‘상천하지의 최고로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두셨다.

8. 하나님이 땅에서 역사를 펴실 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그 지역에서 최고로 좋은 위치, 좋은 자리’에 두신다.

9.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시대 최고 좋은 위치, 합당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아예 ‘최고 좋은 위치, 합당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10. <선조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자손들>은 그 후에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살았다.

11. 어느 때는 자손이 하나님께 조건을 세워 ‘좋은 위치’를 받고 살았다.

12. <신앙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동산>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 좋은 위치’였다. <좋은 위치>라도 그 시대에 해당되게 개발하고 만들어야 ‘아름다운 위치와 장소’가 된다. 아담과 하와는 일찍 타락하여 개발하지 못했다. <에덴동산의 환경>은 ‘좋은 위치’였다. 주위에 4대 강이 흐르는 중심지였고, 지구 전체를 봐도 중앙 지역이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지역, 그 위치에서 살았다.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의 형벌 기간이 끝나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신광야로 나왔다가, 여호수아 때 다시 ‘가나안 땅, 좋은 자리’로 왔다.

13. 세계를 보면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있다. 추운 지역도 있고, 더운 지역도 있고, 기후와 풍토와 환경이 더 좋은 나라도 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더 좋은 자리’가 있다. 청중이 모여서 밤새 소리를 질러도 제재를 안 받고, 국가나 사람들의 제재를 안 받는 자리다.

14. 이 시대도 <하나님의 성약역사>를 위해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자리 잡게 하셨다. ‘자연성전’이다. 자리가 안 좋으면 불편하고,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받는다. <자연성전>은 다른 인가들과 멀리 떨어진 ‘별장’ 같다. 그래서 사람들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왕의 의자>가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듯이, <자연성전 전체의 형상>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다른 사람들의 제재를 안 받고 모두 편히 쓰도록, 하나님은 ‘좋은 자리’에 ‘성약의 시대 처소’를 두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역사>를 행하셨다.

15. <자연성전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아라. 인가와 떨어진 <큰 집>을 그리도 웅장하게 만들었다. <자연성전 전체>를 ‘한 건물’로 보고 ‘그 형상’을 보아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자연성전 전체>를 ‘외딴 별장’으로 보아라. 소음도 없고 제재도 안 받는다. 홀로 자리 잡은 ‘하나님의 궁’이다. ‘큰 건물’이다.

16. <월명동 동서남북 산 능선>을 ‘성전 건물의 벽’으로 보아라. 그리고 <월명동 각 지역>을 ‘건물 안 예배실, 부속실’로 보아라. <지붕>은 ‘월명동을 둘러싸고 있는 산 여섯 개’다. <6수>는 ‘끝내 주는 숫자’다. 이 <6개의 산 준령>이 ‘지붕’같이 자연성전을 덮고 있다. 그리고 지붕 위로 다니게 만들었다. ‘산책로’다. 성전 안에 ‘돌과 소나무로 길이 1100m의 벽화’를 만들었다. 또 성전 안에 폭포수 3개를 만들고, 큰 호수를 만들었다. 호수까지 합치면 수영장이 4개다. 물이 솟는 샘이 몇 개나 되고, 연회장과 넓은 운동장이 있다. 또 성전 안에 많은 형상석이 있다. <자연 만물>이 ‘집’같이 되어 있다. 신비한 하나님의 구상, 자연 형상이다. 이와 같이 <자연성전>을 ‘큰 건물’로 보아라. 건물 안은 동에서 서까지 직경 500m이고, 남에서 북까지는 직경 300m가 된다. 여섯 개의 산 능선 안이 ‘성전 건물’이다. <핵심지>만 5만 평이 되는 ‘하나님의 궁’이며 ‘전’이다. 알고 깨닫고, 보고 느끼고 써라. <지구>도 크게 보면 ‘하나의 집’이고 ‘한 마을’이다. 큰 것을 크게 안 보면, ‘큰 아름다움’을 모른다. <월명동 입구 문턱바위>에서부터 <잔디성전 능선>까지가 ‘성전 건물 안’이다. 길이는 500m쯤 된다. 지방의 교회들은 성전 안이 커야 50m 정도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10배는 더 크다.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보고 알고 써야 하나님이 그 차원에서 대화하며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가치를 아니 더욱 사랑해 주신다.

<2017년 7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앞뒤>가 뒤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방향>이 혼돈되어 헷갈리고 모르게 된다.
2. <목적지>에 갔어도 그곳이 목적지가 아니면, 그때는 혼돈된다.
3. 길을 가다가 ‘두 길’이 나오면, 혼돈된다.
4. 물건을 고를 때 여러 가지가 있으면, 혼돈된다.
5. 번호가 뒤바뀌면, 혼돈된다.
6. 배우자를 찾을 때도 사람이 많으면, 누가 자기 짝일지 혼돈된다. 한 사람이면, 전혀 혼돈되지 않는다.
7. 힘들면, ‘마음과 생각’이 혼돈되고 ‘삶’이 혼돈된다.
8. 말세 때 구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의 이론’과 ‘새 시대의 이론’이 혼돈된다.
9. <진리>를 두고도 ‘이론이 두 가지’이면, 혼돈된다.
10. <두 사람이 지도>하면, 두 사람의 주관이 달라서 혼돈된다.
11. 말을 이리저리 하면, 혼돈된다.
12.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오해’하면, 혼돈된다.
13. <자기를 중심>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혼돈된다.
14.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면, 혼돈된다.
15. 질서가 깨지면, 혼돈된다.
16. 글을 써 놓은 원고가 뒤바뀌면, 혼돈된다. (지금 잠언을 여섯 장 써 놓고 원고의 순서가 뒤바뀌어, 40분째 혼돈되었다. 해결이 안 되어서 중지하고 ‘혼돈에 대한 잠언’을 쓴다. 사람도 그러하다.)
17. 섭리 길을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혼돈된다. 풀어야 된다.
18. <원인과 결과>를 따져 하나하나 풀어야 된다.
19. 상대가 ‘그릇된 말’을 해도 혼돈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혼돈된다.
20. 모르면, 혼돈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과 일체> 되면, 혼돈되지 않는다.
22. 정확하지 않으면 <생각>도 혼돈되고 <행위>도 혼돈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정확히 온전히 행해라.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영>은 '다른 세상'에서 사니, <자기 영>이 '영계의 어느 세상'에 처해 사는지 모른다. 고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 좋은 대로 산다.
2. <육신>만 보고서는 <자기 영과 혼>이 '어느 세계'에 처해 사는지 모른다.
3. <꽃 축제>를 하면 '꽃'을 '삼위일체'로 보고, <돌 축제>를 하면 '돌'을 '삼위일체'로 보아라. 그래야 '축제'다.
4. 개인도 국가도 '옛것'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못 견디게 해 놓으셨다.
5. 일을 하는 자들이 옆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일한다.
6. 사람이 특별히 죄를 안 지어도 짓는 죄가 많다.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못 한 죄>다.
7. 그냥 보면 '할 일'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할 일이 생각나게 해 달라고, 할 일을 달라고 깊이 기도해야 생각한다. 누구에게나 '할 일'은 무한하게 많다.
8. 영적으로 보면 '할 일'이 정말 많다. 하루 10분도 놀 시간이 없다. 다 '자기를 위해 할 일'이다.
9. 깨닫고 보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고 싶을 정도의 귀한 일들'이다.
10. 깨닫고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귀해서 그 일을 먼저 해야 다른 일도 잘되게 하는 그런 일'이다.
11. 아무리 '돈과 명예와 황금 덩이를 얻는 할 일'을 알았어도 그 순간 <시간>이 없으면 못 하고 끝난다. <시간>마다 '할 일'이 온다.
12. <할 일>을 달라고 기도해라. 생각해라. 적극적으로 찾아라.
13. <기도할 것>이 없다 하지만, 찾아보면 그렇게도 '기도할 것'이 많다.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할 정도다. 그런데 정한 기도 시간에 마저도 제대로 기도를 안 한다.
14. 어떤 일을 하는데 해도 안 되면 실망이지만, '어떤 면에서 한 군데라도 되는 쪽'이 있으니 희망이지 않느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15. 삼위일체는 '사람이 생각과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쓰고서 대화하신다.
16.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교육하여라.
17. <할 일이 없는 자들>은 '특별 기도'를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신다.
18.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할 일'이 그리도 많다.
19. (어느 날 닥친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시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자들이 내게 오게 하는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목적> 없이 가면 '갈 마음'이 없고, 가더라도 열심히 가지지 않는다.

2. <목적>을 따라서 속력도, 힘도, 생각도, 희망도 확실하다
3. <사탄 멸하기> 목적이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면 멸한다.
4. <자기 좋게 변화되기> 목적으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실천하기다.
5. 황금 덩이가 되듯이 <삼위의 사랑 덩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기다.
6. <전도하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희망을 가지고 실천하기다.
7. <생명을 관리하며 살리기> 위해 '목적'을 두고 실천하기다.
8. <하나님과 성령님께 무엇을 해 주기>에 목적을 두고 실천하기다.
9. <좋은 위치와 자리의 성전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행하기다.
10. <자기 거할 곳>도 '목적'을 두고 행하여 얻기다.
11. <목적>이 있어야 생각을 강하게 하고 실천하게 된다.
1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6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구원역사를 펴시며,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세계>를 만들어 영원히 살게 하셨다.
13. <하나님의 목적>을 같이 행하여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최고의 목적'을 이룬다.
14. (성령님) <한 번 기도>를 함으로 인해 '수백 가지가 해결'된다. <기도>는 '이런 목적'이 있으니, 기도하여라.
15. <악한 음모를 이루려는 목적을 두고 행하는 자들>을 두고 의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목적을 트시고 천법에 의해 심판하신다.
16. <악인의 목적>은 형통하지 못한다.
17. <악인의 행함>이 도리어 '의인을 위한 길'이 된다.
18. <기다리는 자>는 '예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19.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람들이 몰라서 못 하니 용서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심판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때가 있으니 지나가면 끝난다." 하셨다.
20.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죄를 청소하는 자'다. 고로 성경 말씀대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가르쳐 주고, 죄를 청소하고 소각하게 하여 죄에서 나와 구원받게 해 준다.
21.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세계'다. 고로 <죄>가 있으면, '그 주관권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
22. <육의 세계>는 '과정'이라서 '죄'가 있다. 이는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러나 <영>이 '영의 세계 중 천국'에 가게 하려면, 마치 목욕탕에서 하루 종일 때를 밀고 새 옷을 입듯이 '죄'를 회개하고 '의'를 행하여 '깨끗한 의의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23.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24.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 나라’ 외에 ‘각종 영의 세계’가 있다. <영>이 ‘영의 세계’에 가서 다시 하나님과 메시아를 잘 믿고 행하여 ‘천국으로 가는 영’도 더러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 욕>이 땅에서 하던 대로 <영>이 영계에서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자기 좋은 대로 산다. 그러다가 또 심판 받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어떤 영은 ‘지옥’으로 간다. 행위대로다. 때가 되면 ‘선 영계와 각종 영계의 영들’은 마치 잡초가 겨울이 되면 계절 심판을 받듯이, 결국 다 정리된다.

25.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시고 ‘영원히 완전한 천국’을 존재시키시며, <본래 천지와 인간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랑’으로 행하신다.

<2017년 7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환경>을 깨끗이 만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럽게 되고, 악취가 나고, 무서운 장소가 된다.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안 고치고 자기를 안 만들고 가만히 두면,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된다.

2. 매일 자기를 만들어라. ‘불의’를 자르고 끊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만들어라.

3. 선생이 시골에 살 때 전도하러 다니다가 몇 달 만에 집에 가 보니, 마당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뒤뜰에도 풀이 자라서 숲이 되어 있었고, 바닥이 다 파여서 도랑이 되어 버렸고, 물이 새서 집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이와 같이 <불의의 옛것, 그릇된 옛것, 나쁜 습관과 버릇의 옛것>을 장사하지 않고 안 고치고 깨끗이 안 하면, 사람이 무섭게 변한다. 매일 ‘자기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고치기’다.

4. 게으른 것도 고쳐라.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은 7월 19일 수요일말씀, 7월 23일 주일말씀으로 자세히 나갔다.) 안 고치면, 게으른 것에 중독되어 방에서 노인같이 살게 된다.

5. <나쁜 습관>이 들면 그것이 편하니, 본인은 좋아하면서 계속 행한다. 고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6. 목사 직급을 주고 교회의 방을 내주며 열심히 사명을 하라고 했더니, 맡긴 사명은 안 하고, 하루 종일 TV만 본다. 알아보니 하루 종일 TV에 빠져 살고 있었다. 사명을 하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선교비는 꼭꼭 받는다. (이 말씀도 7월 19일 수요일말씀과 7월 23일 주일말씀으로 자세히 나갔다.) 성령과 주가 말하니,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니, ‘시대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7. <중요한 말씀>이라서 주가 부흥강사를 쓰고 생방송으로 말씀을 전하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그리도 존다. 졸다가 목이 꺾이기까지 하니, 교인들이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야기한다. 그런 자들은 목회자나 지도자로 인정을 못 한다. <주의 귀한 말씀>을 그리도 소홀이 대하니, ‘교회 운영’을 잘하겠느냐. 당연히 못 한다. ‘본’이 안 된다. 모두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니 ‘주의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 회개하지 않으면 ‘본이 되고 잘하는 자’를 보낸다. 교인들이 그리 눈치를 주며 애를 태우는데, 자신을 모르느냐. <주의 성전>은 잠을 자는 곳이 아니다. 자기 좋은 대로 시간을 쓰고, 썩는 문화를 즐기라고 ‘교회의 방’을 내준 것이 아니다. 모두 다 알고 애를 태우는데, 본인은 모르니 <특별 계시>를 전한다. ◎ 섭리인 모두 <나쁜 습관>과 <그릇된 것들>을 고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핵심>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 <환경>을 깨끗이 만들지 않고 그냥 놔두면 더럽게 되고, 악취가 나고, 무서운 장소가 된다. <자기 자신>도 잘못된 것을 안 고치고 자기를 안 만들고 가만히 두면, 더러운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된다. 매일 자기를 만들어라. 불의를 자르고 끊고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행실’로 만들어라. ◎ 오늘은 새벽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나머지 자세한 교육은 <교역자 교육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교역자 교육> 후에 <섭리인 전체>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먼저 교역자들이 교육받고, 교역자들이 각 교회에 <교육 말씀>을 전해 주면 됩니다. 모두 <주의 교육>을 받고, 그릇된 옛것, 나쁜 습관의 옛것을 장사하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뇌의 영상>이 사라지면, ‘기억’이 안 난다.
2. <보이던 존재물>이 눈에서 사라지면, <뇌의 기억>도 사라지게 된다.
3.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깨달아라.
4. <보지 않고 말만 하고 말만 듣고 사는 자>는 실감도, 느낌도, 감동도, 생각도, 행실도 흐려진다.
5. <보는 자>는 ‘손으로 만지는 자’같이 느낀다.
6. <깨닫는 자>는 마치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 만지는 자’와 같아서 느낀다.
7. <깨닫고 행하는 자>는 마치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지고, 직접 음식을 먹는 자’와 같아서 온 몸이 느낀다. 이는 ‘자기 살과 뼈와 피가 되게 해 버리는 자’와 같다.
8. 사람이 무엇이든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기뻐하고 흥분했어도 <뇌의 기억>에서 잊고 <생각>에서 잊으면 ‘아예 안 본 자’와 같다. 오히려 ‘안 본 자’가 더 낫다. <안 본 자>는 보고자 희망하며 뛰고 달리기 때문이다.
9. <보고자 한 것을 보고도 기억과 생각에서 잊어버린 자>는 ‘그 면에서 죽은 자’다. ‘불행한 자’다.
10.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주>를 보고자 했는데 봤다 하자. 주를 봤을 때는 기뻐 뛰며 사랑했다. 그러다 그 후에는 잊어버리고 별 기쁨과 희망 없이 살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 기억과 생각에서 아예 잊어서 모른다. 결국 사랑을 못 느끼고 아둔한 삶이 되었다. 정말 불행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주를 보고서 잊지 않은 자>는 주와 함께 늘 행복하게 기뻐 뛰며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얻고, 육도 영도 계속 변화를 이루면서 희락을 누린다. 잊으면 - 기쁨도, 흥분도, 사랑도, 희망도, 생명도, 역사도 죽는다.
11. <잊은 자>는 ‘그때 하고 누릴 것’을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한다.
12. 그렇게도 주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 줬는데 ‘잊은 자’는 <영>뿐만 아니라 <육의 삶>도 힘들고, 괴롭고, 하는 일도 안 되고, 곤고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잊어서, 왜 그런지 모른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육신’ 쓰고 나타나셔서 보여 주셨는데 잊었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보낸 자를 통해 행함’으로 보여 주셨는데 잊었느냐. <생각>에서 잊음으로 인해 ‘육적’으로 ‘인성’으로 살아가니 그 답답함과 곤고함이 어떠하겠느냐.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여 ‘생각’으로 깨닫고, 삼위일체를 사랑하고 삼위와 교통하며 살아라. 그래야 다시 사랑을 느끼고, 얻고, 누리고, 기뻐서 행하게 된다.
14. 열심히 신앙을 하며 주를 따르다가 열심을 잊고, 힘이 없어서 제 갈 길 가는 자들아. <육에 속한 삶>은 ‘한때’뿐인데, 거기에 처해 기뻐하며 살고 있느냐. 가다가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면 ‘광야와 사막 길’에 들어가서 못 견딘다. 그러면서 이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시련이다.” 하면서 계속 간다. 가도 가도 끝이 없으니, 그때는 쓰러져서 ‘동서남북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앞에 두고 탄식한다. 계속 가도 ‘사망길’이다. 끝에는 ‘사탄, 사망, 음부, 무저갱’이 기다린다. 가다가 혹여나 잘되면 ‘생명길’로 빠져나오지만, 생명길로 나오다가 인생 끝난다. 고로 ‘육신 쓰고 오신 삼위일체’를 봤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오신 삼위일체’를 봤을 때의 <그 기쁨과 생각>을 잊지 말고 몸부림쳐 행해라. 그때! 삼위를 사랑하고 삼위와 교통하며 변화되어라.
15. 보고도 ‘안 본 자’와 같이 행하면, ‘안 보고 행하는 자’가 훨씬 더 낫다.
16. 현재까지는 ‘보고 나서 더 좋게 더 잘하는 자’가 드물다.

17. <보고 나서 더 잘하지 못하는 자>는 ‘지혜가 없고 판단이 흐린 자’다. <보고 나서 그 기쁨과 첫사랑을 잊지 않고 더 잘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해 얻고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

18. 매일 행위대로 받는다.

19. 보고도 잊은 자들아. <본 것>을 다시 생각하고 행하여라.

<2017년 7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본 자>는 ‘확신’이 있으니, 안 본 자보다 10배, 100배 낫다. 그러나 보고도 잊으니, 마치 ‘보물을 얻었다가 잃어버린 자’와 같아서 ‘못 본 자, 얻지 못한 자’와 같다.

2. <눈으로 볼 때, 그 순간의 기회>로 ‘운명이 좌우’된다. 고로 ‘보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보고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3. 예수님 때 ‘예수님의 육신을 메시아로 알고 본 자’는 아주 소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을 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본 자들’은 절실히 깨닫지 못했다.

4. <육신 쓰고 나타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본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5.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주를 본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낸 자’를 쓰고 행하신다. 100% ‘그’를 쓰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육신 쓰고 나타나신 삼위일체>를 봤으면 잊지 말아라. <육신 쓰고 전하신 삼위의 말씀>을 들었으면 잊지 말아라. 잊은 자들아. 즉시 깨닫고, 돌이켜 다시 행하여라.

7. <전에는 주를 시인하고 따라오다가 부인하고 나간 자들>이 아무리 탄 데 소망을 두고 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륜의 절대 법’이 있기에 그 일이 안 된다. <섭리사 안에서도 하는 일이 안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륜의 절대 법’을 벗어나서 사니, 안 되는 것이다. 그래 놓고도 모르고 산다. 왜 그럴까? 잊었기 때문이다. 보고도 잊었고, 알았어도 잊었다. 고로 모르고, 계속 사망길로 간다.

8.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잊으면 ‘희망’이 무엇이나. 자기 꿈을 이뤄 봤자, 마치 ‘쇠뿔구리가 쇠뿔을 크게 굴리면서 기뻐하며 가는 것’과 같다. <쇠뿔구리가 쇠뿔을 굴리면서 기뻐하며 가는 것>을 ‘사람’이 부러워하느냐. 그것이 기뻐할 일이나.

9. <주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사는 자들>은 주와 함께 ‘다른 차원’에서 산다.

10. <온전히 휴거된 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겠느냐. 세상 명예냐, 돈이나, 환경이나, 권세냐?

11. 저 멀리 사냥꾼들이 산돼지를 잡으려고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데, 산돼지는 자기가 포위당한 것을 모르고 열을 내서 자기 할 일을 하며 희망으로 그 길을 간다. 사냥꾼은 산돼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안다. 산돼지만 모른다. 분명 사냥꾼은 해가 지기 전에 산돼지를 잡는다. <산돼지가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오직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생도 그러하다. <인생의 운명>도 ‘사망길’로 가면 ‘사망’은 절대 못 벗어난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해결된다. 계속 ‘사망길’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모르는 자들>은 ‘육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사망의 길’로 계속 가면서 해결하려 하니,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12. 구원받고 휴거를 이루고서 ‘육적’으로 사는 자들아. 하나님의 심기도 상하고, 주도 그러하다. 계속 그대로 살아 봐라. 결국 ‘해 그늘’이 저서 놀라고, 그제야 돌이키고는 겨우 ‘휴거 꿈무늬’를 잡고, 그 영혼이 ‘황금성 변두리’에 처해

산다. 이 말은 ‘진실’하다. ‘참’이다. 지금 ‘현실’을 보고 기록하고 있다.

13. 어서 돌이켜 온전히 행함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 휴거>를 지키고, <기쁨과 희망과 사랑과 역사>를 뺏기지 말고, <주>도 뺏기지 말아라.

14. <보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아라.

15. <보고 말 안 하고 사는 것>과 <못 보고 말하고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16. <못 보고 말만 하고 말만 듣고 사는 자>는 실감도, 느낌도, 감동도, 생각도, 행실도, 기쁨도, 희망도, 사랑도 흐리다.

17. <본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잊은 자>는 ‘희망을 잃은 자’다.

18. 봤을 때, 붙들어서 행해라.

<2017년 7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육신 쓰고 나타나신 삼위일체>를 잊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주>를 잊고, <과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잊고, <주의 사랑과 조건>을 잊고, <역사>를 잊고, 게으르게 살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들아.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 ‘춧대를 옮긴 자’도 있다. 춧대를 옮기면, 더 이상 ‘춧대’가 아니다. ‘호롱불’이다. <잊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그동안 못 한 것’을 하면, 다시 ‘기회’를 준다.

2. 처음에는 잘한다. 약속은 잘한다. 몇 달은 잘한다. 그러다 흐지부지해진다. 여러 번 그러니, 주는 ‘다른 자’를 세워 경영하고 행한다. <주가 다시 세운 자>가 잘되니, 자기가 못 해 놓고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왜 나는 안 써요? 섭섭해요.” 한다. <자기 때>에 그리도 기회를 줘어도 조금 반응을 보이다 말고, 왜 이제 와서 ‘잘하는 자’를 시기하며 섭섭하다 하느냐. 주는 제발 자기를 파악하고 깨달기를 바라면서 계속 기도해 준다.

3. <자기중심>대로 해 놓고 ‘그 죄’는 계산하지 않고 ‘자기가 잘한 것’만 따진다.

4. <잘하는 자>를 세워야 역사가 경영되고 운영된다.

5. <잘하는 자>를 세워야 생명도 살고 역사도 산다.

6. 주 앞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금방 ‘주기’를 타고 하다가 마는 자들아. <네 책임 분담>은 마치 네가 먹을 것은 네가 먹듯이, 네게 쌓인 배설물은 네가 버리듯이, ‘네’가 100% 해야 된다.

7. 네가 행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실상은 얼마 안 된다. 자연성전같이 해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된다.

8. <자기 힘과 능력>이 별로이면 <행한 것>도 별로다. 배우고 연구하고 연마해서 해라.

9. 매일 절대로 실천하면, 매일 표가 나게 변하고 절대로 된다.

10. 매일 절대 ‘기도’하고, 매일 절대 ‘잠언 30개 이상’ 쓰고, 매일 절대 ‘시’ 쓰고, 매일 절대 ‘못 한 것’을 채우고, 매일 절대 ‘뛰는 운동, 근육 운동’을 하고, 매일 절대 ‘용서’하고 ‘사랑’하고, 매일 절대 ‘실천’하니 - 표가 나게 변하고 절대로 됐다.

11. <주>가 무지한 자들로 인해 ‘억울함’을 당했으니,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억울함’ 없게 해 준다. 고로 정말 잘못했어도 돌이키게 하고 살린다. 가령, 하나님이 “애는 안 되겠다.” 하시면, 주는 “제가 따로 기르게, 저 주세요.”

하여 키워 본다. 그러니 절대로~ 끝까지~ 하여라!

12. 못하면 ‘형벌 기간’을 거친다.

13. 잘하면 ‘행복 기간’을 거친다.

14. 할 것을 안 하고 계산하면, 매일 계산이 잘못되어서 잘못 간다.

15. 하루 종일 이리저리 계산해도 할 것을 안 하고 계산하면 ‘항상 그 자리, 그 수, 그 모양’이다. 계산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할 일’을 하고 계산해 보아라. 그러면 ‘답’이 달라진다.

16. 좋은 날을 두고 하루 종일 날짜만 세면, ‘할 일’은 늘 똑같이 남아 있다. 고로 좋은 날이 다가와도 희망이 없다. 부지런히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날짜를 세면, 어서 일하고 시간을 보내고서 세면, 일이 확 줄어들어 있다. 고로 <좋은 날을 맞을 때>까지 더 희망이다.

17. 돈을 안 벌고 세면, 늘 그 액수다. 벌고 세면, 액수가 달라진다.

18. <자기 의>도 계산만 하면, 항상 ‘그 수, 그 자리’다. 어서 의를 행하고 계산해라. 그러고 나서 세면, 다르다.

19. <휴거 300선>을 이루고 얼마나 휴거 차원이 높아졌는지 하루 종일 계산만 하면, 계속 ‘300선’이다. 어서 ‘할 일’을 하고 밤에 다시 계산해 보면 ‘310선’이 되어 있다. <할 일>을 안 하고 보면, 10일 후에 봐도 똑같이 ‘300선’이다.

20. <날짜>는 세나 안 세나, 잠을 자나 안 자나 가지만, <휴거>는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날짜가 가도 차원이 안 높아진다. 어서 할 일을 하고 실천해라.

21. 하나님과 성령님께 ‘할 일’ 했다고 하니까 “기어이 했네!” 하며 금방 ‘답’을 주시며 “이제 다음 차원으로 가자. 떠나자. 세월은 다시 못 온다. 어서 나와 같이 다음 차원으로 가자!” 하셨다.

22.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니 ‘대답’이 없었다.

23. 밥을 안 해 놓고 배고픈 사람을 부르면 안 오듯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행하지 않고 부르면 안 오신다.

24.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과 교리’는 가르치는데 ‘말씀의 주인’은 못 가르치니, 배운 자들이 주인에게 인사가 없다. <주인>을 제대로 증거해야 궁금해하며 보고 싶다고 편지가 온다.

25.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성령과 주와 일체’는 안 됐으니,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응답이 없다. 먼저 ‘일체’ 되어라. 그리고 대화다. 기도다.

26. 나무와 나무가 한 주권권에서 서로 달고 살아도 ‘진액이 통하여 일체 된 나무’가 아니면 ‘각각’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도 그러하다.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주 뜻대로’ 해야 된다.

2. <작은 생각>을 가지고서도 ‘주 뜻대로’ 해야 된다.

3. 처음에 할 때는 작다. 그래도 해라. 그러면 커진다.

4. 하다가 안 하면 리듬이 끊어진다. 리듬이 끊어지면, 녹음테이프 끊어지듯 빈 바퀴만 계속 돌아간다.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다.
5. <제시간에 제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시간의 리듬이 끊어져 죽은 것’이다.
6. 긴긴 가뭄을 당해 봐야 ‘물이 귀하다는 것’을 절실히 뼈저리게 느낀다.
7. 풍부하면, 없을 때 어떠한지 그 가치를 못 느낀다.
8. 잘되고 잘살 때, ‘과거에 몸부림칠 때’를 생각하고 더 잘해라. 조금 잘되니, 과거에 몸부림칠 때를 잊고 제 갈 길 가고 은혜를 모른다.
9. 축복을 주어 잘되게 해 주니, 신앙까지 이탈된다. 고로 하나님은 또 축복이 가물게 하신다.
10. 축복을 주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과도 주와도 멀어지니 <축복>을 거두신다.
11. 성령이 한두 번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해 줘도 안 하니,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냥 뒀다. 그 위치에서 아무리 몸부림 치지만, 그 위치는 <뜻에서 이탈된 곳>이라서 안 된다. 할수록 더 안 된다. 곧 될 것 같아도 ‘사망의 길’이라서 안 된다.
12.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사람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항상 ‘인간’이 온전히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13. 점점 <세상>으로도 가게 되고, 점점 <하나님 앞>으로도 가게 된다.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서 선악 간에 갈리게 되는데, <사망>은 ‘사망’으로 붙고 <생명>은 생명으로 붙는다.
14.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안’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15. 생명이 ‘인정(人情)’을 보고 벗어났는데 또 ‘인정’으로만 대해 주고 인도하면, 이는 고장 난 기계 같아서 제대로 잡지 못한다. 고생돼도 ‘삼위 안’에서 바르게 생명을 인도하여라.
16. <원칙>대로 하는 것만 ‘원칙’대로 된다. <글씨 하나>도 제대로 안 쓰면, 하루 종일 써도 제대로 안 써지듯, <행위>도 그러하다.
17. 정직하게 행해라. 온전히 행해라.
18. 하루를 살아 보더라도 ‘자기 행위’대로 된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 행위’대로 된다.
19. <제대로 한 것>만 ‘제대로’ 된다.
20.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해서 제대로 안 하는데 제대로 되는 것은 없다.
21.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제대로 하면 제대로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제대로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은 받지 못하고, 육도 영도 구원받지 못한다.
22. 누구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된다고 한다. <육>만 보기에 잘되는 것 같으나, 그 <영>은 사망으로 가서 갇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육>과 <영>이 아무 상관이 없느냐. 모두 ‘자기 몸’이라 ‘자기’가 다 받게 된다.
23.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몰라서 망하고, 알아서 잘된다. <알고 행하는 자>가 ‘인간으로서 신’이다.

24.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도울 때 잘하여라.
25. 성령이 도우실 때는 옆에 계시니, 대화해라. 말해라. 그래야 성령이 함께하심을 더욱 확신하고, 생명력 있게 행하게 된다.
26. <메시아>도 ‘육’이니, 행한 것만 된다. 행했기에, 그로 인해 다른 것도 된 것이다. 예수님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하시며, “나도 행해서 됐다. 나라고 해서 행하지 않는데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고도 그냥 해결되지 않았겠느냐.” 하고 깨닫게 하셨다.
27. 행해야 - 그에 따라 삼위도 돕고 행하신다.
28. 행하지 않으면 육도 마음도 다 편하다. 그러나 안 해서 각종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얻지 못하니 불편하고 고생되고 고통이 온다.
29. 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겠느냐. 저마다 ‘하나님’을 안 믿고 ‘행할 일’을 안 해서다.
30. 하루를 살면서 ‘할 일’을 안 하고 살아 보아라. 할 일을 안 하니 그때는 편해도, 후에는 그로 인해 고통이 온다. 지옥도 ‘일생 동안 할 일을 안 한 것’으로 인해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된다.
31. <주 안에서 행하는 것>만 모두 해결된다.
32. <할 일을 안 한 것>이 모두 ‘죄’이니라.
33. <신>은 절대 행하신다. 행해서 천국도 창조하셨다.
34.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육신>도 땅에서 천국같이 만들어서 살고, 그 <영혼>도 최고로 만들어진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이같이 살라고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만드시고 ‘천국’도 만드셨다.
35. <천국>도 ‘지구’ 만들듯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에다가, 인간들이 ‘자기 행위’대로 집을 짓고 환경을 만들어 살게 된다. 이와 같이 <육>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 행한 대로’ <영>이 형성되고 <천국에서 자기 영이 살 곳>이 건설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36.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면, ‘각 사람의 육의 행위’대로 <천국의 집>이 건설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화요일, 수요일에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했어도 ‘성령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2. 성령님과 일체 되어 있어야, 자기가 했어도 ‘성령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안다.
3. 이 잠언을 쓰는 새벽에도 성령님이 깊은 잠을 깨워 주시지 않았다면 못 일어나서, 이같이 잠언을 못 썼을 것이다. 성령님이 깨워 주셔서 일어났다가 순간 또 자니, ‘큰 녹음기’가 보이면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녹음테이프’가 똑 끊어지고, 빈 바퀴만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때 한 여자가 녹음기의 전기 코드를 빼서 ‘빈 바퀴만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를 멈추게 해 줬다. 그때 내가 ‘끊어진 녹음테이프’를 빼서 다시 이으면서 잠에서 깬다. 그리고 즉시 잠언을 썼다. 성령님이 이 장면을 보여 주시면서 안 깨워 주셨다면, 못 일어났다.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신앙의 잠을 자는 자들>이 이와 같다. 전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다. 이 말을 안 해 주면, 자기 혼자 행한 줄 안다.

4. 자기 욕신이 행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 혼자 행한 것으로 안다. 자기가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인해 행한 것이라도 말을 안 하면, 그 사람 혼자 행한 것으로 안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연결되고 일체 되어 행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그 사람과 연결되어 행하셨구나.’ 알게 된다.
5. 혼자 행했으면 ‘욕적인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연결되어 함께 행한 일>이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시켜서 한 일>이나가 중하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연결되지 않고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욕적인 삶’이다. ‘사망에 속한 삶’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끊어지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이 아니다.
8. 전파가 끊어지고, 전화가 끊어지고, 테이프가 끊어지고, 길이 끊어지고, 물줄기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끊어지면, 이는 ‘숨이 끊어진 것’과 같아서 모두 ‘죽었다.’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랑도 죽은 것’이다. <일체 된 사랑으로 살아 있는 자>만이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체’다.
9. 주와 일체 됐으면 ‘주의 생각’으로 행한다. 그리고 주께 확인하면 “맞다. 내 생각으로 했다.” 한다. <일체 된 자>는 수시로 확인한다.
10.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욕적인 자>는 “이것이 삼위의 생각이다. 주의 생각이다.” 하며 합리화한다. 확인해 보면 아니다.
11. 영계의 한 지역을 보니, 큰 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실 가닥 같은 길’을 내면서 가고 있었다. 가다 보니 ‘절벽’이 막고 있었다. -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중심으로 만든 길로 가는 자들이 이러하다.” 하셨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과 <자기 생각>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다.
13. 주 안에서 한 일이라도 항상 ‘증거’해라. 증거해야 그 일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돼서 함께 한 일’임을 모두 알게 된다.
14. 말을 할 때도 내용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내용은 죽은 것이 된다. 듣는 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 죽은 것이다.
15. 글을 쓸 때도 틀리지 않게 제대로 써야, 보는 자가 알고 인정하면서 읽는다. 이와 같이 <행실>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 고로 행위를 온전히 하여라.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끊어진 삶>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잡았다가 놓은 것’과 같다. 고로 따로 논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가는 자>가 ‘일체 되어 가는 자’다.
18. 영의 세계를 보면, 모두 각자 1:1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잡고서 행한다. 그러다 <손을 놓은 자>는 옆에 있더라도 ‘관계가 끊어진 자’다. 이들은 ‘욕’에 속해 ‘자기 생각’으로 행한다. 그러면서 ‘주의 뜻’이라고 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놓고 가는 자>는 욕에 속해 점점 세상으로 가고 있다. 큰 뱀이 사망의 숲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 발자국씩 가는 자와 같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놓으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운전’하며 간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놓지 말고 일체 되어 행하라고 여러 번을 충고해도 근본이 안 되어 있어 자기 뜻대로

로 한다. 10일씩 금식하고 영의 세계를 보면, 혼자 메마른 광야에 처해 있는 것이 보인다.

21. 정밀하고 세밀하게 자기를 관리하여라.

22. <육>을 위해서는 빠져서 일하고, <영을 위한 신앙의 일>은 맡겨도 안 하고 간판만 크게 붙이고 있지 말아라.

23. <휴거된 영의 육>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놓지 않는다. 순간 났다가도 바로 잡는다.

24. <휴거 300~400선을 이루고서 겨우 이 선을 유지하는 자들>은 주의 손을 났다가, 주가 인도하면 다시 잡았다가 한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래 놓고 주가 같이 했다고 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계시도 ‘자기 생각’대로 받는다. 그래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줬다고 한다.

27. 성령과 주와의 연결이 끊어졌는지, 먼저 ‘기도’하여라. 그리고 ‘자기 육의 행위’를 보아라. 그리고 ‘주’께 물어보아라. 주는 안다.

28. 자기 생각으로만 성령과 주와 연결됐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자기 육의 행위를 보고, 주께 물어봐라.

29. 전기 코드가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전기와 연결된 것이다. 전기 코드를 빼면 전기 연결이 안 된 것이다. 성령과 주 앞에도 그러하다.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성령과 주께 연결되어 있어야 연결된 것이다.

30. 자기가 성령과 주 옆에 있어도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연결하고 있지 않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는 ‘전기 코드’와 같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발전소’와 같다. 전기 코드를 끼우듯,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연결되어 있어야 일체 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전기 코드를 끼워 놓고도 스위치를 안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역시 작동이 안 된다. 100% 해야 된다.

31. 전기 코드를 끼웠어도, 고장 난 기계는 기능을 못 한다. 그러면 고치든지 새것을 다시 사야 된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모순이 있으면, 성령과 주와 연결되어 있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기를 온전히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해라.

32. 삼위일체는 <구시대>는 그냥 놔두고 <새 시대>를 건설하여 ‘새 시대에 오는 자들’이 행하게 하신다.

33. 아예 생명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지 못하게 인도하여라. 그들이 처한 삶이 그러하다고 그 입장대로 인도하면, 결국 한계를 맞게 된다. 여유를 주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두면, 끝을 모르고 제 갈 길을 가는 송아지같이 제 길로 가게 된다.

<2017년 8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이름을 새롭게 지어 줘도 본인이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 간판만 가지고 있는 자와 같다. 이름을 신비하게 지었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써야 신비하다. ‘본인’이 쓰면 신비하지도 않고, 신비하게 하는 일도 없다. 이름을 아름답게 지었어도 ‘본인’이 쓰면 아름답지 못하고, 이름을 지혜 있게 지었어도 ‘본인’이 쓰면 지혜롭지 못하고, 이름을 별같이 빛나게 지었어도 ‘본인’이 쓰면 별같이 높이 뜨지 못한다. <주와 일체 되어 행할 때>만 ‘그 이름’같이 된다. 교회 ‘이름’을 줬으면 ‘이름값’을 해야 된다.

2. 이름값을 못 하면, 그 이름을 다른 자에게 준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름을 지어 줬는데 ‘이름값’을 안 하니, 그 이름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교회도 그러하다.)
4. <이름을 새로 받은 자들>은 ‘이름의 뜻’을 제대로 알고 써라. 목사인데 ‘공적인 일’은 안 하면서, 섭리사에서 꿈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간판’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영이 ‘평신도’다.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자>만 인정한다. <생명록의 자기 이름>도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존재’한다.
5.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이름값을 하는 자’가 그 이름대로 잘되고, 하나님도 그 이름대로 축복해 주신다. (교회도 그러하다.) 슬기로운 이름은 슬기롭게 쓰고, 지혜로운 이름은 지혜롭게 쓰고, 별같이 빛나는 이름은 빛나게 쓰고, 신비한 이름은 신비하게 써라.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이름’을 지어 주시고, 주가 그 이름을 부르게 하면서 주와 함께 행하게 하셨다. 이름을 줬는데도 그 이름대로 행하지 않으면, 뺏긴다. 왜 이름을 지어 주는지 알아라. ‘그 이름대로 행해라.’ 함이다.
6.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하셨다. 이는 아브람의 조상 ‘함’이 못 한 것을 행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라 함이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름’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름대로 행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7.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시며,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하셨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행하여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고 축복을 받았다.
8. 이 시대도 이런 뜻을 두고 ‘이름’을 지어 주는데, 모르고 이름값을 안 하느냐. 연못에 물이 없으면 ‘연못’이라 안 하고 ‘웅덩이’라 한다. 사람도 <이름>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른 연못’이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과일나무’다.
9. 빛나라고 이름을 지어 줬으면, 빛나게 행해야 된다. 개인도 교회도 빛나라고 이름을 많이 지어 주었다. 개인도 교회도 이름대로 안 하니, 가다가 뺏긴다.
10. <이름>은 ‘자기 간판’이다. 과거에 세운 자가 못 하니, 그 이름을 다른 자에게 다시 지어 줬다. 그 사람은 이름대로 자기 사명을 한다. 또 못 하면, 그 이름을 또 다른 자에게 준다.
11. <직위의 간판>도 그러하다. <직위>를 줬는데도 사명을 하지 않으면, 결국 ‘직위의 간판’이 녹슬어서 녹물이 떨어진다. 그때는 모두 보고 알고 인정을 안 한다.
12. 아담과 하와가 제대로 못 하니, 4000년 만에 <예수님>이 ‘후아담’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신약 때 못 한 것>은 다시 ‘재림 때’에 한다. 정녕코 하신다!
13. <가룟 유다>는 그 행위대로 ‘배신자, 불신자,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간판이 바뀌었다.
14. 타락한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은 ‘타락한 자’로 바뀐다.
15. 영의 세계를 보면, 성경 말씀대로 <이마>에 ‘표’를 붙이고 다닌다. 이는 ‘자기 행위의 표’다.
16. <사탄의 것>이면 ‘사탄’이 그 이마에 ‘표’를 찍어 놓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그 이마에 ‘표’를 찍어 놓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일체 되어 사는 자>는 그 표가 확실하고, <흐린 자>는 그 표가 흐리고, <변한 자>는 그 표가 변해서 안 보인다.
17. <휴거된 자>도 역시 ‘숫자’가 찍혀 있다. 어떤 숫자인지는 ‘받은 자’만 안다.
18.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너의 말과 행위’를 늘 옆에서 보고 있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기보다 자기 육신과 가까운 자와 하나 되어 사는 자들이 있다. 10년, 20년을 그렇게 산다. 그러니 축복이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힘들다.
20. <공적인 일>을 맡겼는데 연구하고 노력하려 하지 않고, ‘공적 시간’보다 ‘자기 사적으로 쓰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런 자들은 ‘그 일의 사명자’가 아니다.
21. 사회생활을 할 때도 ‘공적 시간’보다 ‘자기 시간’을 더 많이 쓰면 잘린다.
22. 어떤 사람은 잘되게 길을 열어 주어 좀 잘되면 주께 등을 보이면서 자기중심으로 앞으로 간다. 그러니 축복을 주기가 의식되고, 어떤 일을 맡기기가 무섭다. 모두 회개하고 근본이 뒤집어져서 손바닥을 제대로 보여야 ‘손에 질 것’을 준다.
23.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온전하게 행해라. 그래야 통한다.
24. 나이를 먹을수록 잔머리나 굴리고, 굳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중심으로 행한다.
25.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한 번 지어 보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라. 안 하면 사망으로 기울어진다.
26.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자들>을 생각하며 “이래서 섭리사를 나가는구나.”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느냐. <그 위치>가 이미 ‘사망의 위치’라서 ‘그 삶을 느끼고 겪는 것’이다.
27. <선을 넘어간 자>는 ‘자기’를 모른다. <하나님의 선 안에 있는 자>만 안다.
28. <살아 있는 자>는 주가 말하면, 즉시 ‘생명권’으로 움직인다.
29.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변했구나.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처음 사랑>이 변하면, 신앙적으로 썩고 있는 것이다.
30. <눈>을 떼지 말아라. <생각>을 떼지 말아라.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도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
32. <자기 사명>에 눈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떼지 말아라.
33. <관리>에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 떼면, 죽어도 모른다.
34. <전도, 말씀, 교육, 운영>에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
35. <하나님 주권권 안>에서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
36. <생명의 말씀>에 눈도 마음도 떼지 말아라.
37. <제시간>과 <기회>에 눈도 마음도 생각도 몸도 떼지 말아라.
38. 옛것을 장사 지내라. 아직도 방에 ‘썩은 시체’를 놓고 사니, 썩은 냄새가 천 리, 만 리 풍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와 같이 어서 옛것을 장사 지내라.
39.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은 ‘생방송 말씀 때’ 졸지 말아라. 주가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조느냐. 어서 장사 지내고 온

전하게 해라.

40. 옛것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잔치할 수 없다.

41. <휴거>에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

42. <확인>에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아라.

43.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매일 눈도 마음도 생각도 떼지 말고 조심해라. 어리석게 당하고 울지 말아라.

4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손을 놓고 연결이 끊어져서 자기중심대로 행하는 자들아. 어서 정신 차려라.

<2017년 8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임시'로는 좋게 대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결국 '자기 본성대로' 대하고 '자기를 만든 대로' 대하게 된다.

2.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신다.

3. <그때 처한 분위기에 기쁘고 좋아서 택한 것>은 실체를 갖춘 것이 아니라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

4. <실체로 크고 자라서 갖춘 것>은 실제로 대해서도 여전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5. <마음만 기뻐서 좋아하는 것>은 한낱 '분위기'에 불과하다. 그때가 끝나면 생각도 변한다.

6. <실체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그때가 지나도 실제로 기쁘다.

7. <분위기로 마음이 기쁜 것>은 마치 술 먹고 취해서 기뻐하다가, 술에서 깨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8. 실체가 안 갖춰져 있어도 '분위기'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환경'은 임시 무대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무대>를 만들어 놔야 진짜로 분위기가 살고, 실체가 갖춰져 있으니 시간이 지나도 기쁘고 좋다.

9. <실체가 없는 분위기>는 '임시로 꾸민 가설무대'와 같다.

10. <실제로 갖추고 만든 것>은 분위기가 없어져도 '실체'가 있으니 영영하다.

11. 사랑도 환경도 사람도 하나하나 보면, <겉으로 보는 분위기>와 <실체>는 다르다.

12. <실체>가 갖춰져 있어야 '분위기'가 끝나도 '실체'가 있으니 기쁨이 지속된다.

13. 사람도 환경도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우선 눈에 보이게만 해 놓으면, 그것은 '실체'가 아니니 생각과 기대에 어긋난다.

14. <환경>도 실제로 만들고, <사람>도 실제로 아름답고 신비하게 갈고닦고, <마음>도 실제로 좋게 만들어야 된다.

15. <이단들>은 '임시로 만든 가설무대'와 같아서 '분위기의 때'가 지나면 낙엽활엽수가 지듯 사라진다.

16. 여자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어도 그것은 '분위기'다. 실제로 <육신과 마음>을 갈고닦고,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천국의 영으로 갈고닦고 만들어 놔야 정말 아름답고 신비하다.

17. <분위기>는 그 때가 지나면 눈이 녹듯 사라진다.

18. <실체>는 산, 강물, 샘, 바위 절경같이 영영하다.

19. <분위기>는 임시로 만든 가설무대와 같다. 고로 그로 인해 순간 기뻐하며 흥분됐어도, 날이 새면 사라진다.

20.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말만 하는 것>도 '순간의 분위기'다. 그 말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도 순간 기쁨도 흥분도 사라진다.

21. <월명동>같이 '실체'가 갖춰져 있으면 매일 생각할 때마다, 볼 때마다 기쁨과 흥분이 일어난다. 고로 <자기 자신>을 월명동같이 '실체'로 만들어 놓아라.

22. <말만 무성한 것>은 '분위기'다. 사기꾼들이 말만 무성하게 하면서 분위기로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단의 교리와 수법>이 그러하다. <실체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에 가 보면,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땅에서만 임시 분위기로 믿고 산다.

23. <악평자들과 악한 자들>도 '분위기'다. '실체'는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 결국 '쓰레기'같이 청산된다.

24. <세상 노래>도 한낱 '분위기'에 불과하다. 세상 노래를 들으면, 임시로 욕에 속하여 기분이 좋다. 그러나 '특별한 것'이 없다. '영원까지 갈 것'이 없다. 이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임시 분위기로 그늘나무 밑에 있다가 가는 격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분위기'로 즐기고 기뻐한다. <하나님 영광의 노래>는 욕과 영이 소생하도록 만들어졌기에 땅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쓰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쓴다.

25. <세상 노래>는 '육적 분위기'를 내며 흥분하게 하고, 사망의 그늘로 넘어가서 놀게 한다. 결국 욕도 혼도 영도 더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다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의 고통의 세계'로 가게 한다.

26. 술, 담배, 육적 사랑 모두 '일순간 분위기'다. 끝나고 본정신이 돌아오면, 결국 가설무대는 허물듯이 희망도 허무하게 사라진다.

27. 여자들은 '분위기의 존재'다.

28. 남자들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성이 그곳으로 오도록 꾀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입을 벌리고 있다.

29. 분위기에 속지 않고 분위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자연성전 실체 세계>를 만들었고, <나 자신>도 만들었고, <영원한 역사>를 만들었다.

<2017년 8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독교의 육신 부활, 육신 휴거, 육신 재림 이론>은 '분위기'에 불과하다. 그렇게는 절대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사람들은 "좋은 장소다. 좋은 환경이다." 말하지만 '말의 분위기'일 뿐이다. '실체'가 있어야 된다. <실체가 없는 곳>은 '임시로 만든 가설무대'와 같아서 결국 사라진다.

3. <실제로 예언과 전설과 신화>가 이루어져야, 그곳이 '실제로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좋은 환경'이다.

4.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실체>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 역사하신다. 고로 분위기가 끝나도 <실체>가 존재하고 있으니, 기쁨과 흥분이 연속된다.
5.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분위기'만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고로 하나님이 이들을 '실제로 심판'하신다.
6. <신앙>은 '분위기'가 아니다. <휴거>도 '분위기'가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변화되고 거듭나야 된다. 그리함으로 <육신>은 '육적 휴거'를 이루고 <영>은 '실체 휴거'를 이루어야 분위기가 아닌 '실체 휴거의 삶'이 되어 기쁨도 희망도 사랑도 영영하다.
7. 실제로 행해야 '분위기의 삶'을 벗어나서 '실체 삶'을 산다.
8. <꿈>은 '현실'이 돼야 한다.
9. <기도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실체 분위기 역사, 기쁨과 흥분'이다.
10. 얻으려고 하고 기도해라. <원할 때>는 '분위기 주관권'이다. <실체>를 얻으면 '실체 분위기'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땅>에서 '실체'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영의 세계>에서도 '실체'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
12. 선생이 어릴 때 어머니와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은 이상세계를 그리면서 꿈에 부풀었다. 분위기에 흥분되어 웃고 떠들면서 앞날을 상상했다. 그런데 결국 그 상상의 꿈들은 아무도 못 이루고 '한날 분위기'로 끝났다. <하나님과 일체된 자>만 몸부림쳐 '실체'를 만들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꿈을 이루고 '실체'를 만들었다. 결국 <1000년사 실체 분위기>가 되었다.
13. <사탄>은 인간을 쓰고 분위기를 최대로 만들어서 꺾는다.
14. <악평자>도 분위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꺾는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15. <분위기>는 '배경'이다. '전초 격'이다.
16. <실체>는 '핵'이다. '본론'이다.
17. <포장지>는 '분위기'다.
18. <반침대>는 '분위기'다.
19. <색칠한 것>은 '분위기'다.
20. <실체>에서 분위기가 폭발하고 빛이 나야 된다.
21. <포장은 우아하고 푸짐한데 실속은 보통인 것>은 '분위기'다.
22. <옷>은 '분위기'다. <몸>은 '실체'다.
23. <옷>은 '포장지, 분위기'다. <몸>은 '실체 존재체'다.
24. 세상은 '분위기'를 중심해서 흘러간다. 실속 없는 허무와 공허다. 결국 육과 같이 '밤'을 맞고 '흑암'을 맞게 된다.

25. <분위기>는 ‘보화가 묻힌 밭’과 같다. <실체>는 ‘밭에 묻힌 보화’다. 밭에서 ‘보화’를 캐 가면 ‘일반 농사 밭’이 된다.
26. <육체>는 ‘영혼의 분위기’에 불과하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무(無)’로 끝난다. 분위기를 좋아하며 중심하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된다.
27. 그 날에 ‘분위기 거죽’을 드러내면, ‘속’이 보여서 실망한다. 절망한다. 원망한다.
28. 하나님은 그 날에 <이단들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악한 자들과 악평자들과 음모자들의 간교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29. <속 실체>가 거짓 없이 존재해야, 그로 인해 <겉 분위기>도 빛이 난다.
30. <분위기>는 스타일, 모양새, 임시적 현상이다.
31.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는 성전의 금 기둥>을 보니,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고 신비했다. 지은 자를 우러러 보며 감탄했다.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 돌리고 돌아오면서 “튼튼한 금 기둥아. 잘 있어라. 좋다. 사랑스럽다.” 하면서 토닥거리 주니, ‘병병~~’ 속이 빈 목탁 소리가 들렸다. <실제 금 기둥>이 아니라 <금칠한 분위기 기둥>이었다.
32. <까마득하게 높은 하늘까지 솟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성전>에 가니, 그날은 성전 보수를 하고 있었다. 가만히 보니, <속>에는 ‘붉은 벽돌’로 쌓았고 <겉>만 얇게 ‘대리석’을 입혀 놓았다. 다 ‘대리석 조각’인 줄 알고 감탄하며 둘러봤건만, <속> 다르고 <겉> 달랐다.
33. <성약역사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1000년이 가는 실제 소나무’와 ‘겉도 속도 완전한 돌 보석’으로 되어 있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튼튼하다. 하나님의 대걸작이다. 볼로 녹여서 지구를 만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34.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는 ‘임시적 그 환경의 분위기’다. 고로 순간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위기>는 ‘황금 보화 실체 분위기’다. 고로 영영하다.

<2017년 8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기도하고 그토록 원해서 일을 맡겼는데, 막상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한다.
2. <할 일을 안 하는 이유>는 첫째 힘들어서 안 하고, 둘째 그 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껴서 안 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사람도 만물도 그 존재에 해당되게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4. <여자>에게는 아름다워도 <남자>에게는 아름답지 않은 지체의 형상이 있다.
5. 가령 <여자의 허리>는 잘록하면 아름답지만 <남자의 허리>가 여자처럼 잘록하면, <몸>은 ‘남자의 구조’인데 <허리>는 ‘여자 형상’이니 매치가 안 되어 오히려 아름다움을 감소시킨다.
6. <여자의 가슴>이 아름답다고 해서 <남자>가 그같이 만들고 다니면, <몸>은 ‘남자의 구조’인데 <가슴>만 ‘여자 형상’이니 매치가 안 되어 이상한 몸이 되어 아름답지 않다.
7. <남자>는 ‘남자 지체’에 해당되게 발육되고, <여자>는 ‘여자 지체’에 해당되게 발육되고, 남녀의 구조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게 존재해야 아름답고 멋있다.

8. 이와 같이 <동성연애>도 구조가 안 맞는 비정상적 사랑이다. <몸>은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데 <뇌와 마음>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발달되어, 선(線)을 넘고 자기 형상을 벗어나서 좋아한다. <뇌와 마음과 생각>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발달되었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봐야 옳바르다.
9. <자연성전>은 ‘형상과 모양을 갖춘 돌들’을 세우고 쌓아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이 구상은 ‘자연성전에 맞는 구상’이다. 다른 곳을 그같이 만들면, 마치 남자가 여자 몸같이 만드는 격과 같아서 보기 싫다.
10. 하나님은 ‘이 시대 사명자’를 쓰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일’을 하시며 <성경 말씀>도 이루고 <휴거>도 이루신다. 이는 마치 <여자>가 ‘여자 형상’대로 발육되고 만든 것과 같아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정상이다. 그런데 ‘사명자’도 아니면서 “내가 주다.” 하는 자들이 있고, <시대 말씀>을 이용해서 쓰는 자들이 있다. 이는 마치 남자가 여자같이 치마만 두르고 다니고, 여자 신발이 예쁘다고 남자가 여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격이다. 결국 <진짜 여자 같은 사명자>가 ‘자기가 주라고 하는 자들’을 다 드러낸다. 고로 표가 나서 “정상이 아니다. 이단이다.” 한다.
11. 남자인데, 여자 손톱 장식이 예쁘다고 여자처럼 하고 다니면, 보기 흉하다.
12. 여자인데, 남자같이 튼튼하고 멋있게 보이려고 남자처럼 머리를 자르고, 남자같이 옷을 입고, 남자같이 말하면 보기 흉하다.
13.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명>을 ‘자기’가 하면, 눈에 거슬리고 귀에도 거슬린다.
14. <여자>도 아닌데 ‘여자’인 척하고 다니면 ‘결혼 날’에 드러나듯이, <사명자>도 아닌데 ‘주’인 척하고 다니는 이단들은 ‘그 날’에 다 드러난다.
15. 한두 가지 여자 지체를 갖춘다고 해서 ‘여자’가 아니다. 모든 지체가 다 여자 형상이어야 ‘여자’다. <구원자>도 구원자로서 다 갖추야 ‘구원자’다. 그러나 <이단들>은 거짓으로 말을 맞춘다.
16. <하나님의 창조 법>에 의해 그 존재물은 그 존재물에 해당되게 가꾸고 만들어야 아름답게 하셨다.
17. 옆의 사람이 ‘그에 해당되는 사명’을 받고 행하여 잘되니, 자기도 그렇게 한다. 결국 그 행위가 감소되어 잘 안 되었다.
18. 하나님은 <자연성전>을 구상하실 때, 그 지역은 그 지역에 해당되게 매치시켜 구상하셨다.
19. <신앙이 죽은 자>는 사탄과 악령자에게 끌려간다. <신앙이 산 자>는 사탄과 악령자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20. 신앙이 살아 있으면, 사탄과 악령자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싸워 이긴다.
21. 주권자라도 ‘썩은 세계’에 가면, 같이 썩게 된다.
22. 왕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그 꼴이 불품이 없다.
23. 왕이 ‘사머니즘 신앙’을 하면, 어린이라도 보고 무시한다.
24. 성경에 왕이 왕비와 함께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이 왕과 왕비를 개 취급을 하며 대했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와 함께 심판하셨다. 그들은 거리에서 개죽음을 당했고, 개들이 그 피를 먹었다. 하나님은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셨다.
25. 구원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펴기 위해 ‘우상 종교’와 ‘거짓된 종교’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

26.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線)을 넘어가면서까지 보태서 말을 한다.

27. 성령님은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신다.

28. 할 일을 다 하느라 늦게 자면서 성령님께 새벽 1시 기도를 하게 일찍 깨워 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1시간 늦게 깨워 주셨다. 새벽 1시에 깨워 달라고 기도하고 잤는데 왜 2시에 깨워 주셨냐고 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늦게 잤는데 일찍 깨우면 무리하게 된다. 하나님도 나 성령도 무리하게 행하지 않으니, 모든 것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하셨다.

29. 무리하게 해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도와 달라고 하면, 많이 못 도와주신다. 오히려 도와주면 무리하게 되니, 무리하게 안 할 만큼만 도와주신다.

30. 자기 몸을 무리하게 쓰면서 건강하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조금밖에 못 도와주신다. 많이 도와주면, 더 무리가 되기 때문이다. 고로 무리하지 않을 만큼만 도와주신다. 많이 도와줘서 또 무리하면, 더 아프기 때문이다.

31.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진리의 법’을 주셨다. 무리하게 하여 선(線)을 넘으면 아프고 안 된다.

32. <정상>을 벗어나서 살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도와 달라고 하면, 도와줘도 많이 못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온전한 법>으로 돌아와야 100% 완전히 도우신다.

33. 건강을 생각하여 무리하지 말아라. 무리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많이 못 돕는다. 이는 ‘기울어진 컵에 물을 부어 주는 격’이기 때문이다.

34. 공적인 일을 하더라도 ‘건강의 선(線)’을 넘어서 무리하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벗어난 고로 아프게 된다.

35. 하나님을 부르면서 영광 돌린다고 잠도 안 자고 하면, 하나님을 불러도 졸리고 힘들다. 그러니 일찍 깨워 달라고 기도해도, 제시간에 일어나지 못한다. <정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여라. 그래야 구한 대로 얻는다.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그 단계까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것은 <정신>이다. <생각>이다.

2. <생각>이 흐리면, ‘할 일’을 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3. <생각>을 연단하고 단련하여, <생각>이 절대적으로 강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

4. <육신>이 약해져서 피곤하고 아프면, <생각>이 강해도 ‘육’이 못 따라간다.

5. <육신>도 잘 다루며 평소에 잘 관리해야 ‘강한 생각으로 목적을 실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6. 아무리 <생각>을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게 만들어도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과 일체 되어 ‘그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힘’을 받아야 된다. <인간 자체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이 강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자기중심, 인성’으로 흐르게 된다.

7. 제대로 잘되려면, 잘되게 모두 갖추고 맞춰서 해야 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된다.

8. <자기 정신과 생각>을 육신이 행하기에 합당하게 만들고, 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뜻>도 제대로 이룬다.

9. <생각>을 강하고 힘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목적을 놓고 제대로 실천하게 된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몸>도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도록 거기에 해당되게 단련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되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따르는 자들과 할 일을 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절대 진리이니, 이와 같이 만들고 행하여라.

10.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 시간까지 절대 하겠다 마음먹고 했는데, 그 시간에 안 되었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드니, ‘정신과 생각’이 강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못 한 것이다.

11. <마음과 생각>도 철저히 하고, <몸>도 사전에 미리 충분히 풀어 주고 연단하고 잠도 자 주면서 피곤하지 않게 해 주고 하니, 그다음에는 ‘생각’대로 하게 되었다.

12. <육신>이 약하거나 아프거나 게으르거나 ‘육적인 문제’가 있으면, <생각>을 못 따라간다.

13. 지도자들은 <생각>과 같고, 따르는 자들은 <육>과 같다. <육>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생각>대로만 하려 하니 <육>이 안 따라 주고, <육>이 갖춰지지 않아서 <생각>을 못 따라가기도 한다. 고로 교육하고 만들어 주면서 같이 하여라.

14. <내 생각>이 집중해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손>이 저리고 아프니 <손>에 감각이 없어져서 글이 안 써졌다. 결국 <손>을 찬물에 넣고 주무르니, <손>이 다시 힘을 받아서 글씨가 잘 써졌다. 이와 같이 <생각>은 하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행할 수 없다. 고로 ‘육의 문제’를 풀어 줘야 되고, ‘육’이 제대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하고자 해도 <몸>이 힘들면 ‘죽음’을 앞에 놓고서도 안 해지고, ‘좋은 것’을 앞에 놓고서도 안 해진다. <따르는 자들>도 그러하다. 이들은 ‘육’과 같으니 풀어 주고 힘을 주고 만들어 주면서, ‘정신과 생각’과 일체 시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시켜 줘야 된다.

15.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원하고 그리 좋아서 하려 해도 <육신>이 약하거나 아파서 문제가 있으면, <몸>이 안 따라 줘서 못 한다.

16. <몸>이 피곤하면 <생각과 정신>도 그 영향을 받아서 흐려진다. 이는 마치 <자기 애인>이 힘들어서 주저앉으면,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그 영향을 받고 힘들게 되는 격이다.

17. <몸>을 풀어 주듯이 <생각>도 풀어 주어 이상 없게 만들어 주어라. 그래야 목적을 두고 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생각과 마음>이 지치면 ‘좋은 일’이 있어도 안 해진다.

18. <생각>이 많은 제재를 받고, 쉽게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목적을 두고 행해진다.

19.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의식이 되어 행하는 데 제재를 받고, 사탄이 막아서 생각을 흐리고 피곤하게 하고 각종 지장을 준다. 고로 회개하여 <생각>이 제재받는 주관권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자기 혼과 영의 힘’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감동과 영적인 힘’을 받아서 행하게 된다.

20. <마음과 생각이 청결한 자>가 되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생각>이 ‘제 기능’을 하게 된다.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일을 해야 없는 것이 생기듯이, <좋은 생각>도 자꾸 해야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2. 일을 해야 없는 것이 생기듯이, <마음과 생각>도 힘 있게 만들어야 힘과 능력이 생기고 생기가 생긴다.
3. <의욕>이 있어야 한다. 하고자 하는 <희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목적의 유익’을 보고 행하게 된다.
4. 자연성전을 만들 때도 ‘희망이 불타는 목적’이 있었기에, 돌이 다섯 번이나 무너졌어도 또 했다. <하나님의 새 역사>인데 과거에 ‘거처’가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설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기성인들도 냉정하고 냉랭하게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어이 만들었다. <월명동 골짜기가 찢어지도록 군중들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목적>을 두고 기어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과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두고 기어이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을 두고 기어이 만들었다. 모두 보고 놀라며 “이 같은 곳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 그때 가르쳐 주어 모두 알게 해 주려고 ‘희망’으로 만들었다. 결국 <하나님의 대(大) 자연성전>을 만들고 귀히 쓰고 행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월명동이 얼마나 귀한 장소이며 좋은 위치인지 깨우쳐 주셨다. 그로 인해 <월명동>은 ‘신비한 형상과 모양을 가진 천하의 길성지’이며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뜻하시고 예정하신 곳’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택한 장소>인 ‘좋은 자리, 집터’를 차지하고, 그로 인해 ‘그 지역의 좋은 땅’을 다 사서 ‘섭리사의 것’으로 만들어서 개발했다. <월명동 핵심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니, <한국>뿐 아니라 <복음이 가는 나라>마다 ‘핵심지,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복음으로 인한 생명들’을 차지하며 시대 역사를 펴 가고 있다.
5. 다시 말하면 - 하나님은 <길성지>를 주시고, 그 힘과 영향으로 역사하시어 민족과 세계까지 ‘섭리사가 가는 곳’마다 ‘좋은 위치에 좋은 자리’를 계속 주신다. 먼저 <월명동 200평 집터>을 차지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의 운과 사명’으로 ‘월명동 골짜기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핵심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힘과 운>으로 ‘좋은 위치의 좋은 장소, 좋은 작품, 좋은 건물’이 다 ‘하나님의 것, 섭리사의 것’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낸 자의 사명의 힘>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좋은 곳을 차지한 힘>으로 하나님이 각 나라,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런데 섭리인들이 이를 모르니 <생각>도 약하고, <힘>도 약하여 <좋은 자리>를 차지한 만큼 선교가 안 된다. 이것이 문제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힘>과 <좋은 곳을 차지한 힘과 운>을 가지고, 그만큼 행하는 자들에게 또 주신다. 기도하면서 꾸준히 해야 된다. 우주 만물같이, 태양같이, 지구같이 절대적으로 꾸준히 행하고 차원 높여 행하여라.
6. 기술이다. 방법론이다. 지혜의 완전한 판단이다. 노력이다. 수고다. 그래야 편안하게 앉고 걷고 쉬기도 하며, 기뻐하며 희망으로 산다.
7. 성령과 주와 너희가 일체 되면, 정말 잘된다.
8. <온전히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마음도 몸도 편한 방법’이다.
9. 사람이 실수해서 실패하고 망한다.
10. 실천하라고만 하지 말고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고, ‘사명’도 주고, ‘자료’도 주고, ‘지원’도 해 주어라. (반복) ● <생각>을 강하고 힘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목적을 놓고 제대로 실천하게 된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몸>도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도록 거기에 해당되게 단련해라.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되어서 해라. 그리고 따르는 자들과 할 일을 하면서, 그들도 이렇게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절대 진리이니, 이와 같이 만들고 행하여라.

<2017년 8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법>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면 지도하기 편하다. 그러나 <법>대로만 하니 ‘틀’에 박히게 된다. 고로 ‘더 좋은 것’이 있어도 그때그때 더 좋게 못 한다.
2. <법>을 정해 놓지 않고 그때마다 좋은 대로 하라고 하면, ‘새롭고 더 좋은 것’을 행하여 얻기는 하는데 ‘균형’을 잃게 된다.

3. 하나님 안에서 <법>을 정해 놓고 하되, 때마다 그 <법>을 중시하여 <좋은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것이 좋다.
4. 하나님은 항상 잘되게 해 주신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인간이 제대로 못 해서'다. '몰라서 못 해서'다.
5.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는 '인간이 제대로 못 해서'다.
6. 경주하는 자같이 최고로 목숨 걸고 뛰어야 이긴다.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그 힘도 같이 써야 이긴다.
7. 잘된 이유는 '100% 잘해서'다.
8. 항상 <실천할 것>을 두고 평소에 '예비'해라. '연습'해라.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라.
9. 글씨를 멋있게 잘 쓰려면, 평소에 '연습'해야 된다. 평소에 연습하고도 실제로 작품 글씨를 쓸 때 '정성'으로 안 쓰면, 연습할 때보다 안 된다. - 인생 사는 것도 그러하다.
10. 할 때마다 잘하기다.
11. 잘하려면, 고통도 따르고 고생도 따르고 힘도 든다. 하지만 잘해 놓으면, 계속 고생하지 않고 힘도 안 들고 쓰게 된다.
12. <완전하신 삼위일체> 앞에는 '항상 완전하게' 해야 통한다. 그래야 받으신다.
13. 완전하게 해야, 모두 제대로 보고 대한다.
14. 곤충도 짐승도 만물도 완전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통하고, 제대로 안 된다.
15. 온전하게 행하면서 '절대자 삼위일체'를 대해라. 그래야 그 행위를 받으시고 더욱 함께하시며, 삼위와 통하게 된다.
16. <그 시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안 하면, <핵심 시간>에 그 밀린 일을 하며 시간을 쓰게 된다. <그 시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해서 없애야, <핵심 시간>에 '그때 할 일'을 집중해서 하게 된다.
17. <생각과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제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봐도 제대로 안 보인다.
18.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19. 얻기다. 얻고 나서 제대로 사용하기다. 운영하기다. 생명도 각종 보화도 성전도 그러하고, 휴거도 그러하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하나님이 할 일'까지만 하고 가신다. '그 이외의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기에 따라서 더 해 주신다.
2. <하나님>은 '핵적인 머리 같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은 '그에 해당되는 각 지체 같은 말씀'을 주신다.
3. <주>는 '머리 같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지체 같은 말씀'을 성령으로 연결시켜 전해야 된다.
4. <없던 것이 있게 된 것>도, <있던 것이 없어진 것>도 '표적의 계시들'이다.
5. 성경을 보면 '표적'에 관해서 많이 말씀했다.

6. 성경을 보면, <갈 때>는 있었던 나무가 <올 때>는 심판으로 베임을 당해서 없어졌다고 했다. 이 말씀도 ‘표적에 관한 말씀’이다. 이는 ‘악인들을 두고 한 말씀’으로서, 심판 때가 되면 나무 베어 버리듯 한다는 말씀이다.
7. 하나님은 <큰 사건>을 두고도, 그 환경에 처한 대로 그 순간 ‘작은 것’이라도 징조로 보여 주시고, 현실에서 그것과 연결시켜 깨달도록 계시하신다. 그리고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8. 아무리 평소에 각오하고 결심해도, 막상 할 때 생각에서 잊으면 그 각오와 결심이 아무 소용없다.
9. 하나님은 <삼위에 대한 것들>을 핵으로 하여 <사람들에 대한 것>과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서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만물의 비유로 징조를 보이시고 행하신다.
10. 어느 때는 <비유> 없이, 직접 <실체>를 보여 주며 계시하실 때가 있다.
11. 두 가지 방법으로 <비유>를 보이시는데, 첫째 ‘실체를 다른 것에 빗대서 말씀’하시고, 둘째 ‘만물’을 보여 주신다.
12. 하나님과 일체 된 자들에게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시기보다 <실체>를 직접 보여 주며 말씀하신다. 단, 비밀리에 말하기 위해서 일체 된 자에게도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시기도 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실 때 깨닫고 알게 된다.
14. 사랑하는 자라도 모르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해 준다고 하다가 더 마음에 들지 않게 하고 더 손해 가게 한다. 하나님과 주 앞에도 그러하니, 물어보고 해라.
15. 사랑하니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모르고 하면 오히려 마음에 안 들고 손해만 간다. <하나님과 주께 묻지 않고 하는 자>는 ‘자기 중심하는 자’다. 그런 자는 70%밖에 못 해 준다.
16. <하나님과 주께 묻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되어 행한다.
17. 모르면 물어봐라. 알아야 일체 된다. 알고 행해야 잘된다.
18. 아는 기쁨, 아는 희망이다.
19. <아는 자>가 ‘발에 감춰진 보화의 주인’이 된다.
20. <아는 것>도 ‘보화’다.
21. 알면 <신>이 되어 ‘그 주관권’을 다스리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
22. <하나님의 축복 중의 하나>가 ‘알게 해 주는 것’이다.
23. 성경도 <알고 푸는 자>가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편다.
24. <하나님과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제 생각대로 하다가 다른 길로 가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 마치 열매 없는 나무를 20~30년씩 가꿨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고 끝나니, 그제야 깨닫고서 말도 못 하고 자기 합리화 하는 격이다. <시대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곧 시대 구원자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사랑의 완성’을 하여 ‘휴거되는 열매’다. 나머지는 다 ‘이단’이고 ‘세례 요한 격’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마지막 날’에 밝히어 알게 하신다. 헛예언도, 거짓된 것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내신다. 정치·경제·종교 세계도 ‘마지막 날’에 다 밝히신다. 메시아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헛외침도 결국 다 드러나게 하시고, 무색하게 하신다.

25. <모순>을 통해 <참>을 깨닫고 찾는다.
26. <무지>와 <앎>은 극과 극이다.
27. 지금 세상에서도 <무지>와 <앎>의 두 세계에서 극과 극으로 살아가고 있다.
28. <모르는 자>는 ‘기다리고 찾는 삶’을 살다가 끝난다.
29.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세상 정원’은 같이 쓰고 사나, ‘아는 자의 주관권’은 완전히 다르다. 딴 세상이다.
30.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나. 모르니까 찾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것이다.
31. <배워서 안 자>는 쉽게 얻고, <모르는 자>는 얻으려고 애간장 태우며 계속 지구를 돌며 찾아다닌다.
32. <작은 것>도 미리 안 해 놓으면, 그때가 닥쳤을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난다.

<2017년 8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뇌는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행하면, 뇌 신경이 흥분되고 마음이 흥분되어 기뻐하며 한다.
2.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흥분되고 기쁘다.
3.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해 주 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신다.
4.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통해 <최고로 원하는 목적, 영원히 가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천지 만물 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일을 ‘지구 세상이 최고로 발달됐을 때 마지막’에 하신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 일을 하는 시대’다. 삼위일체는 ‘시대 구원자’를 보내서 ‘그 일’을 하신다.
5. 삼위일체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목적>으로서 곧 ‘휴거’다. 삼위일체가 인간을 ‘최고 단계의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에 따라 <인간의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행하면 <육>도 ‘사랑체’로 성장하고, <그 영>도 ‘삼위 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된다. 마치 어린아이를 20~25년 동안 키워서 그 아이가 사랑과 인격과 각종 것을 갖추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렇게 ‘사랑의 대상체로 성장되고 변화된 영’을 ‘구원 자의 영’과 함께 <사랑의 세계,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 이것이 ‘영 휴거 역사’다. <영을 휴거시킨 육신>은 ‘구원자의 육’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휴거의 삶, 신부의 삶’을 산다. 이 기간은 ‘시대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다. 그 리고 성약 1000년 역사 기간 동안 <신부급 사랑의 성약역사>를 펴 나간다.
6. <영>이 휴거되면 육신이 살아 있어도 ‘영원한 신부급 사랑의 세계, 황금성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한다. 휴거를 상실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영들은 계속 황금성에서 혼인 잔치 하고 있다. 이제 이 역사로 온 자들도 시대 말씀을 듣고 주를 믿고 행하면, 휴거를 이룬다.
7. 지금은 <지구가 생긴 이후 최고 황금 시대>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행하시는 황금 역사>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다. 주변 종교는 <휴거>를 모르니, 이 시대의 영향만 받을 뿐이다. 그 영향으로 하나님은 민족과 세계를 평화롭 게 하신다.
8. <종교에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핵심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지구 세상 수십억이 아직 도 기다리고 있다.

9. 잘못된 교리로 생각이 짝 차서 ‘사고’를 달리하고 ‘삶’을 달리하니, <기다리던 자>가 와도 알 수가 있겠느냐.
10.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건뿐 아니라 <만사의 모든 일들>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이미 하고 끝났어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
11. 짝사랑하는 자는 상대의 마음을 정말 모른다. 자기는 상대를 사랑하니, 자기가 짝사랑하는 상대도 그 대가로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안다. 그러나 상대는 전혀 ‘생각’도 다르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이와 같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것>도 모르면, 짝사랑하는 자같이 100% 속는다.
12. 사람이 <모르는 것>같이 ‘억울한 것’도 없다.
13. 알았으면, 잘 살아서 부자가 됐다.
14. 배우면 바로 아는데, 안 배우면 10년, 20년, 평생 모르다 끝난다.
15. <모르는 자>는 ‘소경’이다. <눈쁜 자>는 소곤대고 이야기하며 먹고 마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자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모르는 소경’임을 알아야 ‘시대 말씀’을 듣고 눈이 떠진다.
16.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마치 같은 아파트 한 동에서 살듯 ‘같은 위치, 같은 건물’에서 살아가지만, <아는 자>는 벗어나서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길성지’에 궁궐을 짓고 삼위일체와 오신 자와 함께 사랑 잔치 하며 살아간다.
17. 알면 ‘신’이 되어 행한다.
18.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다 뺏긴다.
19. <아는 자>는 얻고 누리면서도 말을 안 한다. 도리어 <모르는 자들>이 알까 함이다.
20. <진짜>는 말을 안 하고, <가짜>는 목에 핏대가 팔뚝같이 서도록 외친다.
21. 알면, 거짓된 자들에게 안 속는다.
22. 사기꾼치고 도와준다는 말을 안 하는 자 없고, 희망에 불타서 이야기 안 하는 자 없다.
23. 사기꾼은 그냥 사기를 안 친다. ‘근거’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 <근거>를 댄다고 무조건 믿지 말고, 하나님과 주께 고해라.
24. 사기꾼들은 본인이 직접 안 하고, 마치 돈세탁하듯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다. 자기도 해 보니 잘됐다고 하며 바람을 잡는다. 종교 사기꾼인 이단, 이성 사기꾼, 사랑 사기꾼, 물질 사기꾼, 땅 사기꾼 모두 ‘여건’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꾀다.
25.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기를 치는 자기의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과 실천’으로 알고 아예 그렇게 사고가 굳어져 있다.
26. 지능이 낮으면, ‘이성의 올무, 사랑의 올무, 각종 올무’에 쉽게 걸려 ‘해 받는 골짜기’로 끌려간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각종 올무’를 놓는다. 거기에 걸리면, 산짐승이 포수에게 잡히듯 한다.
27. 빨리 생각하고 빨리 행해야 빨리 네 것이 되어 평생 쓴다.

28. 빨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즉시 가서 ‘한 건물’을 샀다. 그 건물을 사고 내려오는 길에 보니 ‘한 스님’이 그 건물을 사려고 숨 가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니, 여기에 절도 없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저 위에 건물을 사러 급히 가는 중이요.” 했다. <하늘 편>은 ‘천운을 타서 사고 오는 길’이고, <상대편>은 ‘사러 가는 중’이니 ‘길’이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빨리 행해야 ‘천운’을 타서 얻고 ‘천운의 길’로 가면서 ‘천운의 삶’을 살게 된다. 늦으면, ‘가는 중’이 되느니라. (한국말 표현 <가는 중>은 ‘가는 길’이라는 말. 그러나 여기서 <가는 중>은 중=스님, 곧 ‘가는 스님’. 가는 중이다. 가는 길이다. = 가는 중(스님)이다. 언어유희적 표현이다.)

29. <2017년 하나님의 천운과 형통의 계시>는 ‘경주하는 자같이 한눈팔지 말고 목숨 걸고 뛰어라. 그래야 너와 겨루는 자를 이기고 얻는다.’ 이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힘을 주시며 밀어주신다. 잊지 말고 행해야, 천운을 타고 형통하고 얻는다.

30. <생각의 계시>다.

31.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으로 감동을 주시며 계시하신다.

32. 하나님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신다.

33. 하나님과 성령님은 <알게> 하시며 축복해 주신다.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각과 몸>으로는 연약해서 갈대같이 너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너무도 고통을 받는다.

2. <생각>도 <몸>도 연단하고 단련하여 ‘체질 변화, 정신 변화’시켜 살아야 추위도 더위도 환경도 잘 견디고 고생도 안 한다.

3. <마음>도 <생각>도 <몸>도 어린아이같이 약하니, ‘연단’이다.

4. 농사지을 때 쓰는 연장도, 생활할 때 쓰는 연장도 처음에 쇳덩이일 때는 약했다. 쓰이는 곳에 따라서 다시 ‘강도 조절’을 하여 강하게 만들어야 ‘연장’으로 쓸 수 있다. 낫, 괭이, 삽, 칼 등 모두 ‘강도 조절’을 해서 다시 만들었기에, 그 위치에서 쓸 때 견디는 것이다. 사람도 태어난 대로 그냥 쓰면, 약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생각과 몸을 연단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으면 추위나 더위에 금방 쓰러지고, 안 좋은 말을 듣고 겪을 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난다. <연단>이다. ‘도가니에 넣은 금’같이 <단련>이다.

5. <몸>도 운동해서 단련하면 10배, 20배 강하게 만든다. 마음도 생각도 몸도 체질도 연단하고 단련하여라. 연단하지 않으면 서운함, 오해, 위축감, 두려움, 공포, 눈치, 우울증이 쉽게 오고, 작은 것에 부딪혀도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 신경이 너무 충격 받아서 제대로 할 일을 못 한다.

6. 생활 속의 마음과 몸 체질 연단, 기후와 날씨에 따라 잘 견디도록 연단, 마음과 생각의 연단이다. 좁은 데 연단, 넓은 데 연단, 높은 데 연단, 험한 길에 대한 연단이다. 인생길을 가면서도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는 데 연단이다.

7.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일수록, 거기에 해당되게 연단하게 하셨다.

8. <연단>은 마치 ‘그 센터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다. 모르면 쥐도 못 하듯이, 연단이 안 되면 쥐도 마음과 생각과 체질과 몸이 감당을 못 해서 주인이 못 된다.

9. <연단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쥐도 못 견디고 안 하고 떠난다. <연단된 자>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껍데기’

가 지나가면 ‘알맹이 황금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견디고 이긴다.

10. <땅속의 보화>도 ‘연단되고 단련된 자’가 캐낸다. ‘연단된 마음과 단련된 몸’을 가지고 땅을 파 들어가서 보화를 캐낸다.

11. 시대 구원자는 지구력 있게 10~20년 동안 계속 성경을 파고들어서, 결국 <시대 말씀>을 깨달았다.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새 역사>를 지켜 왔다.

12. <연단되고 단련된 자>가 끝까지 뛰고, 끝에 있는 것을 얻고 짊어지고 천 리 길을 온다.

13. 끝까지 해야 얻는다.

14. 끝까지 해야 얻는다. 이 말은 실화다. 선생의 아버지가 광산 일을 하는데, 한번은 옆의 사람이 금이 안 나온다고 하며 결국 굴을 버리고 아버지에게 주고 갔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아버지는 혼자서 계속 굴을 파 들어갔다. 결국 금이 나와서 수십 관을 샀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다. 지금은 <금 1관>에 ‘약 1억 7천만 원’ 한다. 옛날에는 <금 1관>에 ‘약 17만 원’ 했다. 70년 전에는 17만 원이면, 집 네 채도 더 샀다.

15. 마음도 생각도 몸도 체질도 연단하고 단련하여 끝까지 해라. 끝에 가면 ‘바라고 원하던 것’을 얻게 된다.

<2017년 8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배경>과 같이 보아야 ‘핵의 모양과 형상’이 제대로 보인다.

2. <배경> 없이 존재물을 보면, 딴 형상으로 보인다.

3. <눈, 코, 입 배경> 없이 그 지체만 보면 매치가 안 되니, ‘본 형상’보다 감소되어 보이고, 다른 비슷한 형상과 헷갈려 보인다.

4. 그 배경에 그 존재물이다.

5. <역사의 주인>도 그 시대에 맞는 사명자가 ‘배경과 때’에 맞게 나타나서 해야 맞다. ‘배경과 때’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때’라는 배경에 합당한 자를 보내시어, 그 ‘때’에 맞게 그를 통해 그 시대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6.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때, ‘예언된 배경과 때’가 합당하게 맞고, 그 배경과 때에 ‘합당한 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합당한 말씀’을 전하며 행하신다.

7. <배경이 안 맞는데 하는 자>는 마치 지체가 딴 곳에 붙어 있는 격과 같아서 “아니다. 틀렸다. 기형이다.” 한다.

8. <배경이 안 맞는 자>는 마치 축구를 도로에서 하는 자와 같아서 모두 “거기는 축구장이 아니다.” 한다.

9. 나무도, 돌도, 수영장도, 집도 그 배경에 있어야 매치가 되어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10. <구상의 법칙>은 ‘그 배경’에 맞게, ‘존재물의 모양과 형상과 크기’에 맞게 구상을 하는 것이다.

11. <야심작>도 그 위치는 산이 경사지고 높은 곳이다. 딴 데는 산이 완만하니, 만들어도 그와 같은 절경이 안 된다.

12. <폭포수>를 야심작 위치에 했어도 눈에 거슬린다.

13. <하나님의 구상>은 ‘그 위치, 그 존재물, 그 시대에 보낸 사명자’다.
14.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15. <제시간, 제때>에 맞는 ‘말씀과 행위’다.
16. 해 뜨는 때, 일출이다.
17. <제때>봐야 ‘제 모습’을 본다.
18. <제 위치>에 ‘그 존재물’이다.
19. <호수 팔각정의 소나무>가 ‘배경’을 타고나서 더 아름답다. <절벽에 있는 노송>이 평지에 있는 소나무보다 ‘배경’을 타고나서 더 이상적이다.
20. 인자는 배경을 타고나서, 배경과 같이 온다.
21. 지자(知者)는 강을 타고나고, 인자(仁者)는 산을 타고난다.
22. 그 전설에 해당되는 인물이 태어난다.
23. <전쟁 때>나 전쟁의 영웅이 나와 부러워하지,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지도자가 나타나 영웅적인 행위를 하면 잔칫집에 쏘다니는 개와 같아서 모두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없애는 것이다.
24. 전쟁을 일삼는 나라에 하나님은 평화의 왕과 함께 심판의 선고를 내리셨다.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선조와 같이 된다.
25. 그 시대 배경과 그 인물이다.
26. <가장 좋은 장소>는 ‘그 배경에 맞는 인물이나 존재물이 있는 곳’이다. 그곳을 지형적으로 “자미원 명당, 금계포란 지형, 우백호 좌청룡이 둘러싼 명당이며 길성지다.” 한다. 또한 하나님이 최고로 치는 “백보좌 형상이다.” 한다.
27.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시대 배경에 맞게 메시아를 보내신다.
28. 하나님이 때에 맞게 합당하게 보낸 자가 아닌데, ‘세례 요한 격인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결국은 세례 요한 격으로 목 잘려 끝난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하면, 목 안 잘리고 그 사명의 빛이 난다. 그러나 이 시대 세례 요한들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였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때’도 ‘시대 배경’도 맞지 않게 나타나서 역지로 설득시키면서 끌고 왔으나,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메시아가 와서 ‘때와 시대 배경’에 맞춰 역사를 펴니, 마치 해가 뜨니 어둠이 사라지듯 사라졌다. 결국 이단 교파로 남아 세례 요한 사명도 제대로 못 하고 죽고, 행한 대로 심판받고 끝났다. 메시아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시대 십자가를 졌어도,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가 행한 대로 갚아 주며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을 이 루고 역사를 펴 나간다. 고로 영영하다.
29. 나무도, 식물도 때가 안 맞으면 시달리다 죽는다.
30. 하나님도, 보낸 자도 환난 후에 구름 타고 나타나신다.
31. <계시>에는 ‘삼위가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이 있고, ‘자신이 스스로 만물을 보고 깨닫는 계시’가 있다.
32. <자기를 온전하게 만드는 자들>은 매일 만물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다.

33. <가짜와 이단들>도 비슷하게 하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불살라 없애듯 심판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34.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보이시니, 그와 같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심판을 하신다.

35. 하나님은 불의는 용납지 않으신다.

36.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다.’는 사고만 가지고 행하니, 자기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된 행위, 불법인 줄을 모른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2017년 8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졌어도 ‘제 위치’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황금 위치가 못 되고, 가치도 없고, 빛이 나지 않는다. (‘용 그림’을 그리고서 날개를 위쪽에 붙이니 안 맞았다. 하나님은 이를 보이시며 “제 위치가 명당이다.” 라고 계시하셨다.)

2. <노래>도 ‘제 위치’에 그 가사를 넣어야 황금 가사가 된다.

3. 전체가 아름다우려면, 눈도 코도 입도 ‘제 위치’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다.

4. <그림>도 ‘제 위치’에 제대로 그려야 흠 없는 그림이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제 위치>란, ‘제시간과 제때’다. ‘제때 제대로 하는 것’이다.

5. 첫째, ‘제 위치’다. 둘째, ‘제대로 만들기’다.

6. 사람 지체가 제 위치에 있어도, 제대로 아름답게 생겨야 ‘미인이다.’ 한다.

7. 초저녁에 신화의 동물을 다 그려 놓고 자고 나서 새벽에 보니, 생각대로 모두 잘 그려졌는데 다만 양쪽 날개가 목 위쪽으로 너무 붙어 있었다. 그러니 목도 짧아 보이고, 몸이 목까지 올라가니 어색해 보이고, 전체의 균형을 잃은 그림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하시길, “이같이 제 위치가 명당이다. 제 위치에 제대로 만들기다.” 하셨다. 두 날개를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제 위치 작품’이 될 수가 없었다. 고로 날개를 다시 제 위치에 그리니, 날개가 제대로 붙어서 전체가 완전하였다. 이같이 <위치>가 그리 중요하다. <위치>가 ‘생명’이다. <사명의 위치>도, <때의 위치>도 그러하다.

8.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명당도 그 위치에서 1m, 2m만 벗어나면 절대 명당이 안 된다. <집>도 ‘제 위치’에 정확히 제대로 지어야 된다. 큰 산맥이 흘러 내려오면, 전체 산세(山勢)와 그 주변 산세에 맞는 ‘정확한 위치’가 있다. 그 터에 거기 해당되는 건물이나 조형물을 만든다. 월명동도 전체 산세를 봤을 때, 그 위치가 최고의 장소다. 풍수지리에서 최고로 치는 명당이다. 회골도, 가는골도, 다리골도, 석막리도, 앞섭골도 아니다. 확대시켜 보면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광주도, 서울도, 전주도 아니다. 한국의 전체 산세를 봤을 때, ‘그 위치’다. <3.16 휴거기념관>도 전체 중에서 ‘그 위치’다. 높이도 ‘그 높이’다. <호수>도 운동장에 만들어서 ‘운동장 호수’가 되었다면, 제 위치에 만들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 ‘제자리, 제 위치’에 구상하고 행하셨다. 이같이 ‘위치’가 그리 중요하다. <그 위치를 차지한 자>가 ‘주인’이 된다. <월명동>은 산의 구조와 형상이 ‘제 위치’에 갖춰져 있다. 고로 거기에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그 위치에 해당되는 것만 제대로 짓고 개발하면 된다.

9. 하나님은 절대 ‘제 위치’를 ‘황금 땅’으로 보셨다. 그리고 거기 해당된 자가 주인이 되게 하셨다.

10. <위치 값>이다.

11. <장소 값>이다.

12. <그 위치>는 좌우, 위아래 모두 여건이 갖춰져 있다. 고로 그 자리가 ‘천하의 황금 자리’다. 육에 속한 세계를 말하니, 믿는 자들 중에는 “이것은 미신이다. 우상적이다.” 한다. 미련하고 모르니, 아는 자를 불신한다. 그 날에 모두 감춘 것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은 종교 역사를 시작하실 때부터 ‘좋은 자리’를 찾아서 역사를 펴셨다. <에덴동산>도 지리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중앙’이다. 고로 ‘좋은 자리’다. 하나님은 <성전>도 늘 ‘최고 좋은 위치’에 건축하시고 역사를 펴신다. 월명동을 보면서 ‘천국의 것’을 보고 깨달아라.

13. <제 위치, 황금 자리>는 ‘전체의 중심 자리’다. <인간의 지체>도 ‘제 위치’대로 존재한다. <메시아>는 ‘중앙 위치, 사랑 자리’에 있다.

14. <축구 경기장의 중앙선>은 그 위치가 ‘축구 경기장 전체의 중앙, 중심’이 된다. 그 자리가 황금 자리다. 황금 자리에 집을 지으면, ‘전체의 중앙, 중심’이 된다. <성경의 중심인물>도 그러하다. ‘그 시대 전체의 중심이 되는 자’다. 고로 하나님은 그에게 모두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

15. <시계>도 ‘중앙’에 시침, 분침, 초침을 꽂아 놓고 돌아가게 한다. <시계의 중앙>이 ‘황금 자리’다. 모두 거기서 힘을 받고 돌아간다.

16. <제시간>을 써야 그 시간에 해당되는 힘도 받고, 얻을 것도 얻는다.

17. <제 위치>는 다른 말로 ‘제시간’과 ‘제때’다. <제시간, 제때>가 ‘명당’이며 ‘좋은 자리’다. 많은 때 중에 <제시간, 제때>가 ‘최고 적기(適期)’다.

18.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시다가 ‘최고 극치의 위치, 최고 극치의 때’마다 그 시대 합당한 선지자나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신다.

19. <집>도 아무 때나 안 짓고 때에 맞춰 짓듯이, 하나님도 제때를 벗어나 아무 때나 메시아를 보내서 행하지 않으신다. <제때>에 맞춰 그가 오면,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가 모두 다 맞게 돌아간다. 마치 하루의 시계가 24시간으로 딱 맞게 돌아가듯 한다. 그는 ‘때’라, ‘때’를 알고 전한다.

20. <하나님 역사의 때>는 단춧구멍에 모든 단추가 맞듯 맞다. 하나라도 편차가 생기면 끝에 가서 안 맞듯이, 이단들은 처음에는 다 맞으나 끝에 가서 안 맞다. 틀리다.

21. 처음에는 “이 사람이다.” 하고 가다 모두 죽고, 흐지부지 끝난다.

22.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 다 <새벽 별>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다 새벽 별이 아니다. ‘때’가 맞지 않다. <새벽 별>은 새벽에만 뜬다. 초저녁에도, 밤중에도 안 뜬다. 다른 별들이 거의 질 때, ‘새벽의 그 시간과 그 위치’에만 뜨니 잘 못 본다. <새벽 별>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다른 별들과 비교가 안 되게 크고, 그 빛이 찬란하다. 그런데 이단들은 ‘때’도 아닌데 일반 별을 두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은 심판하여 멸하셨다. 메시아도 아닌데 메시아라고 하며 많은 자들의 영, 혼, 육을 잘못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법을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된다. 제 위치도 아닌데 마치 “이곳이 명당이다. 최고의 자미원이다. 초승달 터다. 금계포란 터다.” 한 격이다. 고로 사기꾼이며 거짓된 자다. 가 보면, 아니다. 확인하면, 아니다. 확인하면, 지체 중 향문 자리를 금단의 열매 자리로 속인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구멍의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밤에 뜬 별들은 새벽을 맞지 못해 모르고, 새벽에 있던 별들도 <새벽 별>로 인해 그 빛을 잃는다. <메시아>는 ‘새벽 별’ 같이 그 육신도 새벽에 나고, 그 때에 맞는 호칭도 가지고 태어난다. ‘때’를 알리는 호칭이다. 곧 때에 맞는 호칭을 ‘띠’로 정해 부른다. 그는 ‘시계 같은 자’요, ‘하나님의 때를 알리는 자’다.

23. 도적, 강도는 때를 무시하고 주인을 피해서 나타난다.

24. 하나님이 보내신 주를 피해서 때도 아닌데 나타나 활동하니, 그 정체를 말해서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고하여 심판

한다.

25. 하나님은 하늘의 때도, 세상의 때도 맞춰서 보내신다.

26. 이단들은 모두 도적이 주인을 피해 오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피해 미리 와서, 도적질하듯 생명을 도적질한다. 고로 하나님은 모두 잡아들이신다. 세상에서 잡아들이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된다.

27. <제 위치, 제때>가 중요하다. <때>를 보고 할 일도 하고, 분별하여라.

28. 하나님은 보낸 자와 말없이 심판하신다.

29. <때>를 보고 “주인이다.” 혹은 “아니다.” 한다. <때>에 따라 나타났어도 메시아가 온다고 한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온 자는 ‘세례 요한’격이다. ‘세례 요한’격으로 왔어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 “크다.” 혹은 “작다.” 한다. 못하면, 심판이다.

30. <제 위치>에 만들었어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 “작품이다. 걸작이다.” 한다.

31. <제 위치>에 그렸어도, ‘얼마나 잘 그렸느냐’에 따라 “미인이다. 아름답다.” 한다.

32. <노아 후> 400년 만에 아브라함이 왔다. <신약 때>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나타나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전에 온 자는 세례 요한으로, 그 뒤를 따라 ‘제때, 제시간’에 맞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고, 증거도 못 했다. <이 시대>도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루터’가 1546년에 죽고 그 후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 시대가 기다린 주가 온다. 그 전에 온 자는 세례 요한 격이다. 그 역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나, 한 기간이 끝나면 ‘시대 주’가 공적 역사를 펴며 온다. 역사를 배운 것을 깨닫고, 항상 ‘역사의 때’를 따져 보아라. 오차가 없다.

33. 그 위치에 해당되는 지체가 그 지체의 사명을 하듯이, 하나님은 전체를 한 덩이의 몸같이 보고 그때마다 그 위치에 해당되는 사명자를 보내서 그 시대 역사를 펴신다. 이같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역사를 펴 오셨다. 지금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새 역사, 성약 역사를 시작하시고,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 사랑의 뜻’을 이루는 <휴거 역사>를 펴고 계신다. <주인>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주인만이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한다. 판 자는 때가 오기도 전에 먼저 해서 결국 못 하고 끝났다.

34. 마치 먼저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끝난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오기도 전에 끝났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제때’에 와서 행하니 따라 할 수가 없다. 제때 따라 해야 하는데 자기 집, 자기 건물을 다 없애고 다시 짓듯 해야 하니 늙어서 따라 할 수도 없고, 혹은 이미 죽고 세상을 떠나서 못 한다. 좋은지 나쁜지 일생을 두고 한 기간밖에 못 한다. 이리 봐도 못 하고, 저리 봐도 못 한다. 사람도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젊었을 때 할 일, 젊은 사랑은 못 한다. 종교 역사도 그러하다. 늙은 구시대인 데리고 젊은 사랑 하고 누리겠느냐. 고로, 제때 하여라. 제때 주와 함께 하여라. 섭리사를 나갔다가 와서 때가 끝났는데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청년 때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35. 이단이나 참된 자나 모두 ‘한 일생’에 ‘하나’ 하면 끝난다. 잘한 자나 못한 자나 ‘한 번’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시 알아도 할 겨를이 없다. 지난날은 이미 죽은 날로 끝난 것이다.

36. 해가 지는데 “이 길이 아니다. 저 길이다.” 해도 그때는 다시 못 건너오고, 못 한다.

37. <주>도 한 기간 하고 끝난다. 한 일생을 두고 두 번 다시 못 한다. <따르는 자들>도 자기 능력껏 제대로 못 했다고 해도, 다시 못 한다.

38. 그날 할 일을 두고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했는데 제대로 못 했다고 해서 해가 지는데 다시 그 시간을 들여 할 수

없듯이, 인생 일생도 그러하다. 고로 ‘한 번에 아예 잘하기’다.

39. 인생 두 번은 못 사니, 한 번에 삼위와 주와 함께 잘해라.

40. 하나님은 “월명동도 두 번 할 시간이 없다. 한 번에 잘해라.”하시어 하나님과 성령께 다 맡기고, 하는 자에게 수십 번씩 코치하면서 했다. 선생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그것은 저 위치에 두면 됐다. 그만하면 휴거 역사를 펴는 데 지장은 없다. 이제 그같이 몸부림쳐서 아름답게 사랑의 세계, 신앙의 삶을 이루어라.” 말씀하셨다.

41. <서두르고 재촉하라는 것>은 ‘네가 생각한 것 외에, 그 때 가서 또 다른 할 일이 있다.’ 함이다.

42. 한 남자가 먼 길을 가는데, 탄 자들보다 서둘러 떠났다. 가면서 휴게소도 안 들르고 계속 재촉하면서 갔다. 그러다 자기도 미처 몰랐던 장소에서 다른 할 일이 생겼다. 그 장소는 물 좋고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으로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장소였다. 만일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그 장소를 못 샀다. 여자는 남자가 서둘러 가서 준비한 곳을 보고 “내 평생 이런 곳에 살고 싶었다. 누가 이곳을 샀다고 들었는데 내가 살 곳이 되어서 기쁘다.” 하며 기절했다. 그리고 “이래서 서둘러서 재촉하며 갔구나.” 했다. 남자는 자기 애인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해 주니, 보람이 있었다.

43. 좋은 아파트도 사려고 수천 명씩 모이듯이, 좋은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랑하는 애인에게 사 주고 싶어도 늦으면 못 사 준다. 고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기 위해 먼저 일찍 서두르게 하신다. 서둘러서 먼저 계약하게 하면 그 후에 탄 자들도 계약하러 온다. 사탄도, 우상을 따르는 자들도, 구시대인들도, 이단들도 후에 몰려든다. <새 역사>도 ‘서둘러서 행한 자’가 새 시대를 따르게 됐다. 늦으면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되고, 경쟁자와 경쟁해야 된다.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백지장 차이인데 모르듯, <비유>도 알고 보면 ‘백지장 차이’인데 모른다.

2. 꿈에나 생시에나 성경에서나 <말하는 목적>을 두고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으로 비유하고, 왜 많은 존재물들 중에 그 존재물로 비유하고 상징했는가.’를 알고 보면 백지장 차이인데, 모른다.

3. 다른 사람이나 만물을 통해 목적인 자를 보이기도 하고, 자기를 비유해서 깨닫게도 하신다.

4. <성령님>은 ‘자기 어머니’나 다른 자의 ‘부모’, 혹은 ‘여자’로 보이며 비유하여 계시하신다.

5. 한번은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그 사람에게 편지해서 확인해 보니, 그 꿈에 해당이 안 되었고 면회 온 자가 그 꿈에 해당됐다. 그런데 꿈에는 그와 상관없는 자를 보이셨다.

6. 많은 나무 중에 사람을 상징한 나무는 그 사람이 길렀든지, 그 사람과 사연이 있어서 보인다. 고로 나무를 상징으로 삼는다.

7. 그런데 어느 때는 전혀 상관없는 자를 보이며 다른 자를 계시할 때도 있다.

8. 강의할 때나 말할 때나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유’를 들고 지나간다. 이같이 <꿈>에도 깨우쳐 주는 데만 목적하고 ‘비유’를 들고 지나간다.

9. 가령 <저 사람은 어떤 짐승 같다.> 하면, 그 얼굴과 모양이 그 짐승같이 생겼거나, 성격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여 보인다.

10. 한번은 꿈에 어떤 짐승이 들판에 있기에 “이리 오라.” 하며 손짓하니, 천천히 왔다. 쓰다듬어 주니 옆에 와서 눕기에 팔베개를 해 주니 자기도 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다녔다. 아주 사나운 동물이었었는데, 그 이빨을 보니 손가락만 했다. 꿈에서 깨고 이 짐승이 누구인가 생각하니, 어제 같이 이야기했던 자가 생각났다. 내 말을 듣고 대화하던

자였다. 얼굴을 보니, 꿈에 본 짐승과 비슷했다. 후에 그와 또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자기는 성격 때문에 잘 싸운다고 했다. 알고 보니 꿈에 보인 것은 ‘성질을 건드리지 말고 꿈에서 그 짐승을 대하듯 하라.’는 계시였다. <꿈>은 ‘자기’에게 해당되고, 그에 해당되는 ‘비유’로 보이신다. 어느 때는 목적에 따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보이기도 한다. 이는 그 사람의 특성이 있어서 그리 보인 것이다.

11. <성령님>을 직접 보이지 않을 때는 ‘어머니’로 많이 보인다. <성령님>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신다는 뜻이다. 그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12. <계시>는 정확히 보여 주니, 자기가 ‘깨달아야’한다.

13.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는 정확하다. 그런데 <말씀과 계시를 정확하게 푸는 자>만 ‘예언의 주인’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된다.

14. 2008년에 서울에서 기도할 때다. 그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기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꿈에 앞날을 보여 달라고 간구했다. 꿈에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누워 있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이셨다. 곧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라 그리 고통스러워했다. 이 꿈을 꾸고 ‘곧 나가겠구나.’ 하였다. <꿈>은 ‘현실’에서 풀린다. <꿈의 계시>를 정확히 풀어야 된다. 아기는 10개월 만에 낳는다. 진통을 겪고 나오게 된다. 10개월은 ‘한 달’을 ‘일 년’으로 계산하여 10년을 보인 것이다. 2007년 중국에 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고 때를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계시록에 나온 말씀같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계 2:10)” 하셨다. ‘하루’를 ‘한 달’로 계산하여 10개월 있다가 한국으로 왔다. 성경에 나온 기간을 기본으로 해서 이를 ‘한 달’ 혹은 ‘일 년’으로 확대해서 계산한다. 이같이 풀어야 정확하다.

15. 자기 생각대로 육적으로 풀면, <10일>을 ‘10일’로 풀고, <10개월>을 ‘10개월’로 푼다. 영적으로 풀면, <10일>은 ‘10개월’로 풀고, <10개월>은 ‘10년’으로 푼다. 하나님은 이같이 성경에 기록된 때를 푸시고, 재림도 예언하셨다. 오직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산하여 푸는 자만 그 날을 알고 온다.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 <육적>으로 풀면 안 맞는다.

16. 계시록에 나온 <10일의 환난>도 ‘10일’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의 상황에 따라 확대한 ‘한 기간’이다.

17. <한 때 두 때 반 때>도 역시 <한 때>를 ‘일 년’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개인형이나, 민족형이나, 세계형이나에 따라 더 확대된다.

18.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대해 계시하실 때도 <하루>가 ‘일 년’이라고 말씀하셨다(겔 4:1-6). 고로 <390일>은 ‘390년’이 되고, <40일>은 ‘40년’이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백성들의 죄를 축소해서 받고, 그와 같이 백성들이 받는다. 우상을 섬긴 죄, 불의와 부정과 각종 더러운 죄들이다.” 하셨다.

19. <개인>도 환난 기간, 또는 죄로 인한 고통 기간이 다 다르다. 3년, 4년, 40년, 어느 때는 3일, 21일, 30일, 40일 동안 받는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20. <섭리역사>도 주와 같이 ‘고통 기간, 환난 기간, 축복 기간’을 보낸다.

21. 꿈의 계시대로 “10개월이 되면 아기가 나오니까, 임신 기간이 끝나면 아기가 나오듯 이 모든 것도 10개월이면 끝나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시대 짓값이 그리 쉽게 10개월로 끝나겠느냐. 신약 때는 예수의 육신이 죽어 썩어서 끝났지만, 이 시대는 창조 목적의 뜻을 이뤄야 하기에 시대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고 희생하여 깨끗하게 해 줘야 된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시대 보낸 자가 시대 죄를 위해 고통을 받으면, 그 시대도 같이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것이다. 고로 그 민족과 세계가 따르는 자들과 같이 고통을 받으며, 역사를 이룰 것을 이루며 가는 것이다.” 하셨다. 지난 10년을 보아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온갖 질병, 자연재해, 그로 인한 생명의 죽음, 그리고 국방과 정치 문제들이다. 10년 전 섭리역사를 뿔 때와 지난 10년을 비교해 보아라.

22. <하나님의 때>는 그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렸다. 중국에 있을 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한 계시록 말씀도 그리 풀려고 해도 못 풀었는데, ‘10개월’동안 내가 고통을 받고 겪으니 풀어졌다. ‘10개월’동안 받으니 정확하게 풀렸다. 또 2008년 꿈에 임신한 어머니를 통해 보인 것도, <한 달>을 ‘일 년’으로 계산하니 100% 풀어지고 답을 알게 되었다. 마치 임신하여 ‘10개월’ 동안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듯이, 그같이 ‘10년’ 고통을 받고 끝난다는 것이다. 성자가 계실 때는 성자가 같이 ‘그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땅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휴거시켜 황금성 천국으로 가셨다. 성자가 가시고, 성령은 마치 임신한 어머니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있다. 때가 되면, 아기를 낳고 끝나듯 끝나게 된다. 이같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도 ‘같이’ 고통을 겪으신다. 역시 사랑하시어 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행복도 사랑도 같이 느끼고 하신다. 이를 깨닫고 알고 대하여라. 과거 성경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한 죄, 그리고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각종 죄들’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

23. (하나님) 사랑을 보일 때는 사랑을 보인다.

24. 해당되는 것을 보인다.

25. <사랑함>을 표현할 때는 ‘사랑에 해당되는 모양이나 형상’을 보여 주며 깨닫게 하신다.

26. 사랑하면, 상징물도 조형물도 그것을 만들어서 보게 하신다.

<2017년 8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간의 구조’를 창조해 놓으셨다.

2. 사람이 농기구를 만들 때도 충분히 농사일에 쓰기 합당하도록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셨다.

3. <차를 만들 때>도 빠르게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뒤로 가거나, 또는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필요한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삼위가 원하시는 뜻’을 놓고 인간 스스로 행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간의 몸도 뇌도 생각도’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체나 생각을 창조해 놓지 않아서 사는 데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인간의 구조’를 창조하신 것이다.

4.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몸과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수만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신적 구조’로 각종 지체를 창조하셨다. 고로, 하면 할 수 있다. 스스로 단련도 하고, 반복도 하고, 노력도 하면 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나 불법이 아니면, 구하면 돕고 함께해 주시니 ‘하나님의 최고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도 할 수 있게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을 가장 크게 보시고, 이를 이루는 자를 ‘인간으로서 가장 큰일’을 하는 자로 보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일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몸도 뇌도 생각도 창조해 놓으셨다.

6.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그 대신 자기가 행한 것은 선악 간에 행한 대로 받도록 ‘자기 책임’을 두셨다.

7. 가령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갔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다시 고통을 겪으며 걸어 나와야 된다. 사전에 연구하고 배우고 알고 확인하고 가는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8. (하나님) 네게 ‘자유 의지’를 주고 선택하고 행하게 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무지의 행위로 인해 당하게 된다. 고로 네게 ‘자유 의지’를 줬다고 막 살면 안 된다.

9.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주셨으니, '자기 몸과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 삼위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믿고 사랑하면서 삼위와 같이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육도 영도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게 된다.
10. 인간은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혼자 실컷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인생 사는 맛으로 느끼며 그것이 몸 체질, 뇌 체질이 된 대로 좋아서 살아간다. 그렇게 한 번 자기 주관과 생각대로 불의한 것이 배어 체질이 되면 좀처럼 안 고쳐진다. 그러니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자기 체질을 '의와 선(善)'으로 돌려서 변화시켜 써라. 그러면 자기 체질을 고친 격과 같다.
11. 가령 강한 성격을 가졌으면, 그 성격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방향'을 돌려서 강화하여 써라. <뇌>는 하던 것을 아예 안 하면 못 참지만, '방향'을 돌려서 하게만 해 주면 좋아서 하게 된다.
12.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격, 행위 등 각종 것에 길이 들고 체질이 된 것은 이미 몸도 생각도 습관이 돼서 고치기가 어렵다. 어떤 자는 세 살, 네 살 때 길든 습관을 평생 가도 못 고친다. 고로 그 성격, 행위, 체질을 '하나님의 뜻'을 펴는 대로 돌려서 변화시켜 쓰면 된다. <성격이 급한 자>는 급하게 하는 곳에 쓰고, <성격이 느린 자>는 꼼꼼하게 느리게 하는 곳에 쓰면 된다.
13.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리하시기 위해 심판도 하시고, 또 자기가 행한 대로 스스로 받기도 한다. 고로 자기 성격, 습관, 체질을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라.
14. 마치 어떤 건물이나 존재물도 다 부수고 다시 만들기는 어렵듯이 자기 성격이나 체질도 고치기 어려우니,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응용하여 써라.
15.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것을 행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무지'로 인해 전능자를 안 믿고 살다가 그 행위대로 육도 지옥의 삶을 살고, 영도 지옥으로 간다. 또한 불법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
16. <열대 지방에 사는 자들>은 성격도 행동도 느리다. 이를 고치려면 힘들다. 고로 이 체질을 섭리사에서 '꾸준하게 하는 체질'로 변화시키고 응용해서 쓰면 된다. <자기 성격과 체질>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응용해라.
17. 자유 의지를 줬으니,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주께 맡기고 그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육으로나 영으로나 자기 마음대로 산 것보다 백 배, 천 배 낫다.
18.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안에 살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 것'도 넣어 주신다.
19. <하나님의 뜻> 안에 사랑도, 재물도, 명예도, 예술도, 먹고 즐기는 것도, 배움도, 학문도 다 있다. 영적인 것들까지 있으니 수백 가지가 더 있다. 그러니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여라. 이 시대는 최고로 발달된 시대다. 하나님은 6000년 구원역사 이후 이 시대에 '최고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펴시니, 모두 그 일에 집중하여 행하여라.
20.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히 듣고 절대 믿고 행하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는 창조 목적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사랑 일체 되어 '신부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육>도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영>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영의 세계,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산다.
21. 땅에서 육신이 더 이상 없는 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니, 그 <영>도 땅에서 육이 행한 대로 천국에서 이루고 산다.

22. <절대적인 천륜의 법>은 ‘땅에서 이론 대로 하늘에서도 이뤄진다.’는 것이다. 땅에서 이론 만큼 하늘에서도 ‘영’이 그 차원대로 이루고 산다.

23. <육신>이 ‘행한 만큼’ 자기 마음도 생각도 기쁘고, 그로 인해 혼도 영도 변화되어 산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법’이다. 이와 같이 <땅>에서 ‘육신’이 이론 대로 ‘영’도 이루고 그 대상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는 ‘천륜의 법’이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3단계’로 구분하여 창조 목적의 뜻을 이뤄 오셨다. 구약 1차원, 신약 2차원, 성약 3차원이다. 그 시대 사람들은 땅에서 이론 대로 그 차원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갔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 시대 외에 더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25. 사람도 3단계로 이상세계를 이룬다. 첫째, ‘남으로 대하거나 자기 밑에 시종드는 자로 대하는 단계’다. 둘째, ‘형제 같이 대하는 단계’다. 셋째, ‘애인같이 대하는 단계’다. 서로 애인같이 대하고, 사랑의 뜻을 이루며 결혼하여 한집에 살게 된다. 이외에는 더 이상 대할 길이 없다. 자기 것이 되었으니 끝장난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끝났으니,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구약역사>는 종급으로서 ‘소생기 역사’, <신약역사>는 형제급으로서 ‘성장기 역사’, <성약역사>는 신부급으로서 마지막 ‘완성기 역사’다. 신부급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더 이상 없는 것이다. ‘오메가’로 끝난 것이다. <이 시대 보낸 자>는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오메가’요, ‘끝’이다. 고로 그는 <끝 역사>를 하러 와서, 처음부터 계속 ‘끝 역사’를 해 온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끝 역사>를 위해 이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 육신을 쓰고 ‘끝 날에 행할 것’을 행하신다.

26. <구약역사>는 ‘시작하는 역사’라 초라했다. 마치 곡식이나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과 같아서 초라하고 작았다. <신약역사>는 ‘성장기 역사’라 마치 곡식과 나무가 한창 크고, 건물을 쌓아 올린 것과 같아서 엄청난 종교 역사가 펼쳐졌다. <성약역사>는 ‘완성기 역사’라 마치 곡식과 나무가 다 자라서 성장을 멈추고 알곡과 열매를 맺고, 집을 다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아서 보다 조용하고 알차다.

27. <성약역사>는 ‘사랑을 이루며 사는 역사’다. 하나님은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당세에 최고로 그 뜻을 펴시며, 1000년간 ‘거두는 역사, 가을 역사’로 행하신다. <종교의 성장기>는 지나갔다. 지금은 ‘추수기’로서 하나님은 마지막 성약역사의 때에 거두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시나 보아라. ‘사랑하는 자, 신부’로 거두신다. 각 교파들은 자기들도 거둔다고 하나, 그 주관권에서 거두는 것이며, 자기 차원대로 거두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구약의 종급에 해당되는 자’를 거두고, <신약>에서는 ‘신약의 자녀급, 형제급에 해당되는 자’를 거두고, <성약>에서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를 거두어들인다. <사랑의 대상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휴거’라고 한다.

28. <사랑의 대상>을 만나 결혼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이상은 없으니 이를 ‘휴거’로 본다.

29. <휴거>는 ‘끝’이다. 더 이상 없다.

30. <휴거>는 ‘하늘로 올라간다. 떠나간다.’ 함이다. 떠나갔으니, 더 이상 없다. 고로 <휴거>를 ‘끝’으로 본다.

31. 성자는 땅에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70년 동안 행하시고 <2015년 3.16날> 신부로 변화된 자들과 함께 휴거되어 떠나가셨다. 성자는 땅에서 <6000년 구원역사>를 펴시고 <2015년 3.16날> 신랑 되어 신부를 취하고 휴거되어 가신 것이다.

32. <더 이상 없는 것을 했을 때나 보았을 때>를 ‘휴거’에 빗대어 표현한다. <성자바위>도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형상을 가진 바위이니, ‘휴거 바위’다. <월명동>도 하나님이 보실 때나 시대의 뜻으로 볼 때나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형상 지역이니, ‘휴거 지역, 휴거 장소’다. 저마다 <자기 몸>도 자기에게 더 이상 없는 몸이니, ‘휴거 몸’이다. 고로 정녕코 휴거시켜야 한다.

33. 성자는 <3.16날> 휴거되어 가셨다. <구시대>는 이를 “승천하셨다.” 한다. <이 시대>는 “휴거되셨다.” 한다. 성자는 “이 시대 말로 표현하여라.” 말씀하셨다.

34. 하나님은 창조 목적의 역사를 이루시려 성자를 땅에 보내시고, 성자와 함께 시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그를 통해 말씀을 주어 행하게 하시어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신부의 영’으로 변화된 자들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 삼고 휴거를 이루셨다.

35. <신랑>은 ‘신부’가 생겨야 신부와 사랑을 하고, ‘사랑의 뜻’을 이룬다. ‘휴거된 신랑’은 참된 신부가 볼 때 참된 신랑이다.

36. <휴거>라는 단어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된다.

37. 오직 <휴거된 자>만 ‘참된 신부’로 표현한다. 세상의 각종 종교들도 하늘 앞에 ‘신부’로 표현하며 부르나, 휴거되지 않은 자들은 참된 신부가 아니다. <신부(神父)>도 ‘신부’라고 부르지만 근본적으로 신부(新婦)가 못 되고, 성경에는 그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비유로 써서 말했다. <휴거된 자>만 더 이상 없는 극적인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 참된 신부’다. 고로, 성약 때의 신부가 그 실체다. 땅에서 육으로도 신부로서 삶을 살고, 영으로도 영원히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38. <집>도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최고로 완성된 집을 ‘휴거 같은 집이다.’라고 표현한다. <휴거>는 ‘끝이다.’ 함이다. ‘원하던 대로 됐다.’ 함이다. 모두 할 때 행하여 휴거를 이뤄야 한다.

<2017년 8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육>과 <혼>은 연결된 하나지만, 따로 존재한다.

2.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이 따로 존재한다.

3. <육>과 <영>은 연결된 한 존재지만, ‘육의 몸’과 ‘영의 몸’은 따로 생활한다.

4. <물건>도 부품들이 연결되어 하나로 존재하지만, 각각 기능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이와 같이 육과 혼과 영은 연결되어 있지만, 따로 존재하고 생활한다.

5.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 ‘생활’도 각각 한다.

6. <부부>도 일체나, 각각 생활하듯이 육과 혼과 영도 그러하다.

7. 보통 꿈에 보이는 존재가 ‘혼’이다. <혼>은 ‘혼의 생각’을 가지고 ‘혼체’로 돌아다닌다.육의 생각도 영향이 있지만, <혼체>는 ‘혼체의 생각’과 ‘차원’대로 육을 떠나 ‘혼의 생활’을 한다.

8. 낮에는 <육의 몸>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도 하며 ‘육’이 활동한다. 그러다 육이 자면, ‘혼’의 활동을 보게 된다.

9. <육이 잘 때>는 ‘혼’이 다니며 보고 듣고 생각한다. 이를 꿈에서 보게 된다.

10. 낮에도 늘 <혼>이 다니지만, ‘육’에 집중하여 생활하니 꿈에서 보듯 잘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낮에도 자기 혼과 대화하면 혼이 하는 일을 알게 된다.

11. 어느 때는 <육의 생각>을 ‘혼’이 받고, ‘혼의 세계’에서 행하기도 한다.

12. 평소에 <육>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다녔다 하자. 그러면 <혼>도 그 ‘육의 생각’을 가지고 꿈에서 찾으려 다닌다.

13. 육이 행한 것, 그 공적을 받아 혼이 차원대로 모양이 변하다가 존재를 형성하여, <혼>이 ‘혼적 존재’로서 따로 행

하면서 존재한다.

14. <혼>은 ‘육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도 하고, 환경도 ‘육의 세계’가 아닌 ‘혼의 세계’에서 다니면서 행한다. <혼의 세계>는 ‘혼의 세계’가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육의 세계’가 혼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15. <혼>은 ‘육의 세계’에서 다니며 보기도 하고, 아예 ‘영적 세계’에서 다니며 보고 느끼기도 한다.

16. 사람도 한 몸을 가지고도 그 몸이 지구에 있으면 ‘지구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달에 있으면 ‘달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본다. 이같이 <혼>도 육의 세계에 있으면 ‘육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보고, 영의 세계에 가면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본다. 다만 ‘혼적 차원’으로 본다.

17. 배우면 쉽게 알 것도 안 배우면 평생을 가도 모르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씩 가도 모른다.

18. 생시에 육신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를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행한다. 그러나 <혼>은 육보다 빠르고 ‘혼적’으로 움직이니 수백 가지도 행하면서 엄청나게 위치를 이동하며 다닌다. 어느 때는 <육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생각’으로 돌아다니며 ‘생각’으로 수백 가지를 행한다. <혼>은 ‘생각’과 같은 ‘영적 실존체’다. 고로 생각이 순간 이동하듯 혼은 순간 이동하며 엄청나게 다닌다.

19. <혼>이 꿈에 다니는 것을 보면, 까마득한 곳도 생각이 순간 이동하듯 펄쩍 이동하여 간다. 아예 위치와 배경이 다른 곳도 순간 이동하여 간다. 마치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배경을 다 보듯이 ‘혼’은 순간순간 다 보면서 지나간다. 어느 때는 TV 화면이 바뀌듯 순간 홀연히 바뀐다. 마치 비디오를 찍어서 화면을 돌리듯이 ‘혼의 세계’에서 그리 빨리 활동을 한다. 어느 때는 까마득한 산을 쳐다보고 있다가 보면, 순간 ‘혼’이 거기에 가 있다. 어느 때는 <혼>이 ‘육신’같이 천천히 다니면서 일을 한다.

20. <혼이 지구 세계에 다닐 때>는 사람도 동물도 만물도 그 세계의 존재 그대로 보되, ‘혼적 차원’에서 본다. 가령 자기가 살던 집도 <혼>이 ‘혼적 차원’으로 보면, 육신이 보는 것과 다르다. ‘혼의 생각과 차원’대로 보인다.

21. <육>과 <혼>은 따로 본다. 존재가 다르다. <자기 육체>도 ‘한 몸’이지만 각 지체가 따로 기능을 하면서 행한다. 눈은 보는 것만 하고, 귀는 듣는 것만 하고, 코는 숨 쉬는 것만 하고, 발은 걷는 것만 한다. 이같이 <혼>도 ‘육의 생각’이나 ‘육의 행위’와 따로 행하고 따로 생활한다.

22. <혼>도 ‘혼의 세계의 질서와 법’이 있어서 ‘한계’가 있다.

23. <혼의 능력>은 ‘육의 능력’보다 높다. 고로 <육>은 불가능하여 못 해도 <혼>은 한다. 가령 <육>은 문이 잠겼으면 못 들어가지만, <혼>은 그냥 다닌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도 문이 닫혔어도 그냥 들어오셨다. ‘혼’과 ‘영’이라 그러하다. 육은 못 해도, <혼>은 물 위도 걸어 다닌다. <혼>은 공중에도 걸어 다니고 날아다닌다. <혼>은 날아가는 새들도 쫓아가서 잡는다. <혼>으로 보면, 땅속도 투명하게 보이기도 한다. <혼>은 가려도 다 본다. X-ray로 속을 보듯 혼과 영은 다 본다. 이같이 <혼의 능력>은 ‘육’보다 탁월하다.

24. 육으로 못 찾은 것도, 꿈에 ‘혼’으로 보고 생시에 육으로 가 보니 있었다.

25. <육의 생각>도 깊이 하고 보면 보통 때 못 보던 것을 본다. <생각>으로도 꿰뚫어 본다.

26. <혼의 생각>으로만 봐도 ‘육의 생각’과 달리 보이고, 더 알고 본다.

27. <영의 생각>으로 보면 더 근본을 알고 본다.

28. 어느 때는 육의 눈으로만 보던 것도 꿈에 <혼>으로 보면 바로 알게 되니, ‘긍정적’으로 본다.

29. <육>으로는 모르던 것도 <영>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안다.

30. 육적인 자, 혼적인 자, 영적인 자가 있다.

31. 낮에는 육이 활동하고, 육이 잘 때 혼이 활동한다.

32. <혼의 존재>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인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다. <혼>은 따로 존재한다. ‘혼체’가 있다.

33. 육신이 잠을 자면 ‘육의 생각’이 자기 육체의 형상을 덧입어 혼체로 형성되거나, 혹은 육신의 그림자처럼 혼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잠을 자나 안 자나 ‘혼체’는 육신과 따로 존재하며 활동한다.

34. 낮에도 ‘혼’이 다니면서 활동한다. <육>과 <혼>과 <영>이 완전히 따로 존재하는 대로 따로 활동한다.

35. 꿈에 <혼>을 통해 육신의 앞날의 것도 ‘예시’하고, 이전 것을 ‘재현’하기도 한다.

36. <혼>은 육신이 안 가는 곳도 많이 다닌다. ‘혼의 세계’다.

37. <혼>도 싸우고, 연애하고, 먹고, 사랑도 한다.

<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안 돌아가는 자>는 ‘하나’밖에 못 보고, <생각이 잘 돌아가는 자>는 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

2. 생각이 안 돌아가면 ‘한 가지’로만 보고 생각한다. 연결시켜서 수백 가지를 보지 못한다.

3. <생각이 잘 돌아가는 자>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치’를 깨닫고 본다. 마치 독수리가 보듯이 하나를 집중해서 꿰뚫어 본다. 고로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까지 연결시켜서 본다.

4. <육>을 깊이 꿰뚫어 보면 ‘마음과 생각’이 보이고, <생각과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면 ‘혼’이 보이고, <혼>을 깊이 꿰뚫어 보면 ‘영’이 보인다.

5.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못 쓰면,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나 평소에 쓰는 표현’을 생각하고 쓰면 된다.

6. 가령 ‘주다. 메시아다. 재림주다. 하나님이다.’와 같이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이나 단어를 쓰고 싶은데 못 쓰면, ‘평소에 쓰는 단어’를 그 단어로 생각하고 쓰면 된다. 그것이 지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비유’로 표현하셨다. ‘생명나무, 선악과’와 같이 수백 가지로 표현하고 부르셨다.

7. 만일 ‘신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다른 자들이 ‘신비주의다.’라고 다르게 생각하고 인식하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오래 걸린다. 이럴 때는 평소에 쓰는 단어를 쓰면서 ‘지구 같다.’라고 하면 된다. 지구는 신비하게 존재하니, ‘지구’로 대체해서 쓰거나 혹은 ‘평소에 쓰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신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이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대체’해서 자기만 알고 쓰면 된다. 아는 자만 알고 쓰니, 그 기쁨과 흥분이 다 자기 것이 된다. 이 시대도 그리해 왔다.

8. <예수님 때>도 미련하고 악한 자들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지 못하니, ‘랍비, 선생’으로 부르며 그 단어를 ‘메시아, 하나님의 몸, 구세주’ 등으로 썼다. 이를 아는 자는 ‘랍비, 선생’을 ‘메시아, 구세주’로 통용하며 실컷 썼다. 미련하고 악한 자, 반대자들은 몰랐다. 그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쓰는 단어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후대에 깨달은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렀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였지만, 그리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면 악한 자들이나 반대자들이 “이단이다. 미쳤다.” 하니, 못 부르게 하시고 ‘랍비’로 부르게 하

시며, 혼자 있을 때만 자신만 알게 부르라고 하셨다. 유대인이 쓰는 말로 <랍비>는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런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선생’이란 칭호로 대체해서 부른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랍비’가 곧 ‘메시아 예수님’임을 알고 부르고, <무지한 자>는 모르고 보통 단어로 생각하고 불렀다. 그 시대가 악하고 무지하고 미련하니, ‘평소에 쓰는 보통 단어’를 써서 부른 것이다. 고로, 시대를 깨닫고 지혜를 받아 살아라. 이 시대도 ‘선생’은 수천, 수만 명이 있다. 시대가 악하고 무지하면, 예수님 때와 같이 ‘다른 칭호’나 ‘비유’를 들어 메시아를 부른다. <메시아>를 ‘머릿돌’로도 부르고, ‘독수리’로도 부르고, ‘왕별’로도 부르고, ‘바위’나 ‘돌’로도 비유하여 부르면서 아는 자들은 실컷 부르고 썼다.

9. <악한 자들>도 모두 ‘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점’도 있다. <선한 자들>도 ‘절대선’같이 ‘선(善)’만 있는 것이 아니다.

10.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의 ‘장점’을 보고 늦추신다. <장점>이 ‘선(善)’이기 때문이다. ‘선’이 사라지고 ‘죄’가 관영하면 그때 심판하신다.

11. <지혜자>는 겉도 속도 다 보고 안다.

12. <아는 자>가 ‘신’이다.

13.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예뻐도 속을 보면 아니니, 그런 자는 사랑치를 앎는다.

14. 가령, 어떤 물건이 겉으로 보기에 더 멋있고 좋고 아름다웠다 하자. 게다가 주인이 그 물건을 반값에 판다고 했다. 그래도 지혜자는 ‘겉’도 ‘속’도 다 보고 알기에 안 산다.

15. 사람을 볼 때도 지혜로 ‘겉’도 ‘속’도 다 보아라.

16. 파악하고 확인하면 안다.

17. 사람들은 보기에 좋고 멋있는 것을 좋아하니, 멋있고 예쁘게 보이고 나타난다.

18. 이단 종교들도 다 그리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당세 한때를 잡고 화려하게 살아갔다.

19. <하나님께서 보낸 자, 진짜>는 오직 ‘한 사람’이다. <진짜>는 자기를 숨기고 옛 시대가 끝나면 그때서야 나타난다.

20. 모두 옛것들이 사라지고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해 놓은 역사를 보고 다스린다.

21. <진짜>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이 숨기고 행하지만,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니 가증스럽게 장식만 만들어 보이며 유혹하고 끌고 간다.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말>로 할 것을 ‘일’로 하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2. <말>로 “산을 넘어갔다.” 하고 전달하면 되는데, 말로 못 하고 몸으로 산을 넘어가면서 전하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지금 ‘주’의 입장이 그러하다.

3. <말>로 할 것을 ‘글’로 써서 전하면 수천 배 늦고 힘들다. 그래도 주는 행했다.

4. <천국>은 ‘말’로 안 하고 ‘생각’으로 전달되는 세계다. 그러니 얼마나 빠르겠냐.

5.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보다 수백억 배 빠르다.

6. <육의 세계>에서 ‘생각’으로 행하던 것도 ‘영’으로 행하면 그리 빨리 행하고, 평생 동안 행해야 될 것도 순간 행하게 된다.

7. <육>으로 행하여 터득하고 깨달으려면 마치 기어서 가는 것과 같아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못 깨닫는다.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그러하다. 예수님 때도 못 깨닫고, 역사가 2000년이 흘렀어도 ‘알고자 했던 성경의 비밀’을 못 깨달았다. 이 시대 <영>으로 행하는 ‘주’가 오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뜻을 바로 알고 행하여 ‘생명의 역사, 기 다리던 하나님의 역사’를 편 것이다.

8. <영적>으로 해라. <영적>으로 ‘성경’을 풀어라. <육적>으로 풀면, ‘육에 해당되는 것’만 풀어져서 ‘육적인 세계’에서 만 기뻐하며 희망차서 살아간다.

9. <영적인 자>는 ‘육’으로 안 풀고, ‘영’으로 푼다. 영적인 자는 <육이 하늘로 간다>는 말을 ‘영이 하늘로 간다.’로 풀고,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온다>는 성경의 말씀을 ‘영에 속한 한 사람을 타고 온다.’로 푼다. 또한 <만물>로 말하면 그것을 ‘신령한 사람’으로 푼다. 이러한 자가 ‘영적인 자’요, ‘영에 속한 지혜로운 자’다.

10. <영>에 속해서 ‘영’을 두고 한 말을 ‘육’으로 알고 ‘육’이 행하면 행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육이 평생 행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11. <주>가 와서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육이 행하면 육의 행위대로 ‘영’이 변화되어 ‘영’이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간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육’으로 풀고 믿는다. 그 육이 ‘영의 세계’로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으면 수시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영>이 가는 것이니, 영으로 혼으로 매일 수시로 간다.

12. <육>이 천국에 가는 것이면, 육이 살아서 가야지 왜 죽겠느냐. 육은 세상에서 살다가 다 죽는다. 만일 <인간의 육>이 하늘나라로 휴거된다면, 살면서 육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육을 죽게 하겠느냐. 인간은 세상에서 육이 다 죽는데, 육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면 모두 실패한 것이 된다. <육>이 천국에 휴거되어 가는 것이 아니니, 육은 세상에서 끝나고 죽게 하셨다. <영>이 휴거된다. <육>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휴거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위대로 ‘영’이 홀연히 ‘하늘에 속한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정한 날에 ‘절대신 성자의 영’과 ‘주의 영’과 함께 휴거된다. <육>은 세상에서 살 동안 휴거 말씀을 듣고, 땅에서 ‘주’와 육으로 함께 휴거의 삶을 산다. <주와 일체 되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땅에서 ‘육으로 휴거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시대 휴거의 진리’다. <육이 천국으로 휴거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며 ‘구시대의 기다리는 자들’이요, 지극히 육에 속한 ‘육적인 자들’이요, ‘가인에 속한 자들’이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을 창조하시려고 ‘육’을 창조하셨다. 고로 항상 ‘영’에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육은 항상 영을 위해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14. <영에 속하지 않은 자,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의 세계의 것’도, ‘육의 세계의 것’도 ‘육’을 가지고만 이루며 사니, 안 이뤄진다. 고로 했어도 곤고한 삶이다.

15. <영의 것>을 못 이루면, 육신이 살다 죽으면 끝나듯 끝난다.

16. <육의 것>만 목적하고 사는 자는 ‘나무와 꽃’만 목적하고 희망으로 사는 자와 같다.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다.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면 ‘열매’로 거둔다.

17. <영>은 ‘열매’와 같고, <육>은 ‘나무’와 같고, <육의 의로운 행위>는 ‘꽃’과 같다. 나무를 통해 꽃을 피워 열매를 맺듯, <육>과 <육의 의로운 행위>로 ‘아름답고 신비한 영’이 되어 주인집에 휴거되어 간다. <주인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한 것이다.

18. 꿈이나 영의 세계에 가 보면 ‘육’은 하나도 없다. 모두 ‘영’이요, ‘혼’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육이 휴거되어 간다. 육이 천국에 간다.”라고 한다.

19. <육이 휴거된다>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의 그 ‘육’이 천국에 갔다는 식으로 성경을 풀고 믿는 것과 같다.

20. 과거에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다가 죽은 자들은 그 ‘영’이 천국이나 낙원으로 갔다. <육>이 아니라 ‘영’이 천국이나 낙원으로 갔듯이, 재림 때도 주가 전하는 시대 하나님의 휴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는 그 ‘영’이 하늘에 속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천국 황금성, 신부성’으로 휴거되어 가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한다. <육>으로는 땅에서 시대 보낸 자를 맞고 그를 믿고 따르며 ‘사랑의 삶, 휴거의 삶’을 산다. 이 역사가 1000년 동안 진행된다.

21. <주의 육신이 살아 있는 당세> 때는 따르는 자들이 주를 보며 ‘같이’ 행한다. 후에 그 육이 죽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중심해서 믿고 행하면서 ‘신부’로 변화되어 사는 역사가 성약 1000년 동안 진행된다.

22. <깨닫지 못하는 자>는 기다리다 가거나, 그릇된 이론만 믿고 육에 속해 살다 죽는다. 오직 절대자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천 년이 가도록 성약 역사를 편다. 구시대에 속한 자들은 한때 꽃이 폼 피었다 지듯 끝난다. <신약 때>도 ‘구시대에 속한 구약역사’와 ‘새 시대에 속한 신약역사’로 갔듯이, <이 시대>도 ‘구시대 역사’와 ‘새 시대 역사’로 간다.

23. <구시대>는 문을 닫고 끝나고, <새 시대>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점점 펴 나간다.

24.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중심해서 오직 한 곳에서만 그 뜻과 목적을 펴시고, 나머지는 육에 속해 육으로 뻗어 나간다.

25. <육에 속해 역사를 펴는 자들>은 빨리 크고 번창하나, ‘성경의 근본 뜻,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이루시는 휴거역사, 성약역사’는 못 이룬다. 육에 속한 가인 종교로서 가다 끝나게 된다.

26. 하나님은 쪼개서 역사를 펴신다. ‘선’과 ‘악’을 쪼개고, ‘구약’과 ‘신약’을 쪼개고, ‘신약’과 ‘영적인 세계, 성약’을 쪼개서 역사를 펴신다. ‘휴거 말씀을 듣고 휴거된 자들’과 ‘그 말씀을 못 듣고 사는 자들’을 쪼개서 역사를 펴신다. ‘온전한 자들’과 ‘온전치 못한 자들’이 쪼개져 나간다. 마치 기계가 과일을 선별하듯 하신다. 쪼개지 못하면, 사탄이 개입한다. 아브라함 때도 쪼개지 않아서 사탄이 개입하니,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항상 하나님은 역사를 펴실 때 절대 쪼개 내서 ‘온전한 자’로부터 역사를 펴셨다. ‘가인’과 ‘아벨’을 쪼개서 ‘아벨 역사’를 펴시며 그 시대의 뜻을 이루시며 왔다. <가인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일들을 하며 ‘육’에 속한 뜻을 이루어 왔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맨 마지막 성약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휴거 역사’를 1000년 동안 펴신다.

2. <휴거>는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다. 그 후에는 ‘성약의 신부급 역사’를 펴 나간다.

3. 이는 ‘신랑이 살아 있을 때’만 그 시기에 해당되는 자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신랑이 죽으면 육으로는 결혼이 끝난다.

4. 과거 역사를 보아라.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만 그 당세에 해당되는 자들과 ‘같이’ 행하셨다. 그 후에는 ‘신약의 자녀급 역사’를 펴 나갔다.

5. 성령이 말씀하시길 “<휴거>는 시대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된다. <육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이다.” 하셨다. <영적>으로는 1000년 동안 ‘성약의 신부급 역사’를 펴 나간다.

6. 성자는 <휴거 역사>를 위해 ‘성약역사의 핵 기간, 70년’ 동안 보낸 자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의 육도 영도 ‘신부’로 변화되게 하시어, 전능하신 성자가 땅에 오신 지 70년이 되던 해에 신부로 준비된 영을 데리고 휴거시키셨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한 때,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날’이었다. 땅에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육적 휴거 역사를 하여, 그에 속한 육신들의 변화된 영들이 계속 휴거된다. 그러다가 보낸 자, 그 육의 생명이 다하면 이와 같은 휴거 역사는 끝난다. 마치 예수님의 육신이 돌아가시고 ‘신약 자녀급 역사’가 2000년 동안 펼쳐 나갔듯이 ‘성약 신부급 역사’가 1000년 동안 펼쳐 나간다. <육>으로 이루는 <휴거> 역사는 ‘육에 속한 것’이니, 육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이룬다. 후에는 ‘영에 속한 시대 신부가 되는 역사’가 1000년 동안 연속된다.

7.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르며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육>도 땅에서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살고, 그 행위대로 <훈>도 <영>도 ‘사랑의 대상, 신부’로 변화되어 산다. 그러다가 ‘육’이 죽으면 육이 없으니, 이와 같이 땅에서는 사랑을 못 한다. 그때는 ‘영’으로만 그와 같이 산다. 그래서 당세에 그 육이 살아 있을 때가 좋다. 후대는 그 육이 없으니 못 하고, 주를 영으로만 믿고 따르게 된다. <휴거>도 그러하다.

8. <휴거>뿐 아니라 정치도, 경제도, 예술도, 운동도 ‘그에게 속한 것’은 ‘그가 살아 있을 때 까지’다. 죽은 후에는 그 후손들이 그 뜻을 이루며 그에게 속해 사는 세계를 이룬다.

9. <지혜>로 설명이 안 되면, ‘비유’를 드는 것이다.

10. 본 것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하니, ‘비유’를 들어 말한다.

11. <지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말할 수 없으면, ‘비유’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12. <휴거>도 “보낸 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다.”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1000년 동안 믿는 자들의 희망은 무엇이나?”라고 묻는다. 성경에 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다. <결혼>도 ‘남편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다. 살아 있을 때까지만 육이 서로 만나고 같이 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산다. 남편이 죽으면 그로 인한 결혼은 끝난다. <휴거>도 그러하다. 그 보낸 자의 육이 죽으면, 그로 인해 이루는 휴거 역사는 끝난다. 후에는 ‘영’으로 그를 믿고 따르면서 1000년 동안 ‘성약 신부급 역사’가 연속된다. <결혼식>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듯, <휴거>도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당세 때 1초도 한눈팔지 말고 하라.’ 함이다. 모르면, 못 한다.

13. 무엇이든지 ‘육에 속한 세상의 것들’은 육이 죽으면 육으로는 더 이상 못 한다. 그런 의미에서 휴거는 ‘보낸 자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이다. 육이 없는데, 육으로 되겠느냐. 성자는 당세 기간 중 <사생애> 기간 동안 ‘보낸 자’를 키우고, <공생애> 기간 동안 ‘따르는 자’를 키우셨다. 공생애 기간 중 <전반기 역사>는 ‘육적인 역사’를 펴면서 따르는 자들을 키우시다가 <휴거 전 3년> 동안은 최고로 휴거를 준비시키시며 그 영들을 ‘휴거의 영’으로 준비시키셨다. 휴거 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휴거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단장시키시고, ‘성자가 이 땅에 오신 지 70년이 되던 해, 구원자가 땅에 태어난 지 70년 되던 해’에 신부로 변화된 영들을 휴거시키셨다. 그날은 ‘알파와 오메가 날’이었다. 보낸 자의 육을 통해 이루는 휴거 역사는 그 육이 지상에 살아 있을 때까지 한다. <당세 기간>은 ‘그 육’을 쓰고 휴거 역사를 하고, <나머지 1000년 기간>은 ‘영’으로 휴거 역사, 신부 역사를 한다.

14. 섬세하게 자세히 알아야 ‘근본’을 안다.

15. 나무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그 나무에서 여는 열매를 따게 된다. 죽으면, 더 이상 그 나무로는 열매를 못 탄다. <나무>는 곧 ‘주’다.

16. <육으로 직접 펴는 역사>는 ‘당세’ 때 잠깐이다. <영으로 펴는 역사>는 ‘성약역사 주관권에 해당되는 1000년’ 동안 펴난다. 모세 때도, 예수님 때도 ‘그 시대 주관권에 해당되는 기간’까지만 그 시대 역사를 펴다.

17. <자기가 머리가 되어 낳은 자들>만 ‘자기 주관권에 해당되는 자들’이 되어 그 주관권의 역사를 펴 나간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그러했다.
18. <성약 때>는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보내시어 새 역사의 문을 열고 ‘새 시대, 성약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성약의 머리가 되는 보낸 자’를 통해 역사를 펴신다. 이 역사는 1000년 동안 간다.
19. 역사를 쪼개서 봐야 된다. 수학은 공식대로 해야 답이 나오듯, 하나님의 역사는 쪼개서 봐야 답이 나온다.
20. <가인>과 <아벨>을 쪼개는 역사다.<구시대>와 <새 시대>를 쪼개는 역사다.
21. <사람의 지체>도 한 덩이로 존재해도, 그 지체의 기능과 크기대로 다 쪼개서 존재한다. <종교 역사>도 그러하다. 율법에 속한 ‘구약 주관권 역사’가 있고, 자녀가 되는 말씀에 속한 ‘신약 주관권 역사’가 있고, 신부가 되는 말씀에 속한 ‘성약 주관권 역사’가 있다.
22.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는 마치 월명동에 있는 사연 있는 술들이나 표상으로 뽑은 술들과 같다. 그 외에는 구시대 역사와 같다.
23. 월명동에 있는 상징 바위나 형상 바위, 돌 조경의 돌들은 시대 신부들과 같다. 그 외에는 구시대 기성인들과 같다.
24. 아무리 유명한 목수라도 썩은 목재로 새집을 짓는다면 그 집이 좋고 오래가겠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집>도 그러하다.
25. 하나님은 ‘새로운 자들’로 뜻을 펴며 ‘새 역사의 집’을 건축하신다.
26. 모르면, ‘죄’다. <모르는 죄인>을 가지고 역사를 펴지 않으신다. <아는 자, 의인>을 가지고 역사를 펴 간다. 모르는 자는 몰라서 역사를 펼 수 없다.
27. 절대 이 시대 휴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자만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역사를 편다.남자는 절대 아기를 못 낳듯이, 이 시대 휴거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절대 휴거되지 못한다.
28. 고양이든 천 년이 가도 호랑이가 되지 못한다. 별은 해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휴거 말씀을 듣지 않고, 주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휴거의 영’이 될 수 없다.
29. 이 세상에 <주> 외에는 머리가 없다. ‘주’ 하나다.
30. 기성에 머리가 그리 많아도 ‘예수님’ 외에는 머리가 아니다. <구약> 때도 시대마다 머리 한 사람, <신약> 때도 예수님, 머리 한 사람, <성약>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 머리 한 사람’으로 역사를 펴신다.
31. 아무리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아도 핵이 아니다. 다른 민족에서 난다.
32. <핵 역사>는 작아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1000년 동안 역사를 펴시며 창대하게 해 나가신다.
33. 세상을 흔들던 자들도 당세가 끝나면 꽃이 지듯 끝난다.
34.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시대 핵심 역사’에서 창조 목적의 뜻을 조용히 이루신다.
35. 임금의 아들이 한 마을에 와서 합당한 자를 택하여 연애하고 결혼하여 그 마을을 떠나는 격과 같아서,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니 모른다. <이 시대 핵 역사>도 그러하다. 지구 세상의 많은 자들 중에서 택한 자를 통해 역사를 펴고,

그를 따르는 자만 알고 간다. 구시대에 기다리는 자들은 기다리다 죽고, 구시대 삶을 살다 죽고 끝난다.

36.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이 택한 자만 알고, 그를 따르는 자들만 해당되어 알고 간다.

37.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어, 그에 해당되는 자들과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펴셨다.

38. 성경 역사를 보면, 때가 와서 새 역사를 펼 때 해당되는 자들만 알고 그 시대 역사를 펴 갔다. 다른 자들은 자기 일에만 만족하며 살다 끝나고, 기다리던 자들도 구 역사에서 새 역사를 찾고 기다리며 희망하다 끝났다.

39.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다.

40. 새 역사를 펴러 와 보니, 다른 자를 따라가거나 혹은 예수님 때의 유대 종교인들처럼 구시대 인식관과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41. <새로 온 자들>에게 ‘새 시대 말씀’을 주고 깨닫게 하고 키우며, 다시 오신 성자의 뜻대로 역사를 펴서 이미 끝냈다. 이제 나머지 역사를 한다.

42. ‘육신이 휴거된다.’고 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휴거되지 못한다.

<2017년 8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안 따져 보면, 때 지나갔어도 모른다.

2. 확인 안 하면, 지나갔어도 기다린다.

3. <글>을 쓸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며 써야 된다. 첫째, ‘내용’을 생각에서 잊지 않고 정확히 써야 된다. 둘째, ‘글씨’를 제대로 쓰는가를 보면서 써야 된다.

4. 어느 때는 ‘내용’에만 정신일도 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글씨가 많이 쓰여 있다. 써 놓고도 모르고, 끄적거리기만 했다. <생각>을 한군데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다 잊게 된다. 고로 같이 할 것은 처음부터 두 가지, 세 가지를 모두 생각에 넣고 해야 된다.

5. 기도할 때도 ‘말을 토박토박 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른다. 들어 보면 중언부언하며 별소리를 다 하고 봄인데 가을 단풍 이야기를 한다.

6. <생각>을 제대로 하고 해야 된다. 정신이상자, 미친 자들은 모두 ‘뇌의 생각’이 이상하게 된 것이다. 본인은 모른다.

7. 생각을 제대로 못 하는 자는 정신병자다.

8. <뇌>는 새벽에 제일 총명하고 집중을 잘한다. ‘종일 생각한 것’을 다 모아도 ‘새벽에 한 생각’만 못하다.

9. 잊은 것을 떠올리려고 하루 종일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생각이 안 났다. 그런데 새벽에 생각도 안 했는데 잊었던 것이 떠올랐다.

10. 하나님은 새벽에 좌정하신다. 항상 ‘첫 시간’을 쓰신다. 처음 시작하는 ‘알파 시간’을 쓰시고, ‘과정’을 도우시고, 매듭지으시려 ‘끝, 오메가 시간’을 쓰신다.

11. <1>은 ‘처음 시작’이요, <3>은 ‘과정’이며, <6>은 ‘끝’이다. <136>은 하루의 일과다. 일생의 역사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12. <시작>을 잘해야 ‘과정’도 잘되고 ‘끝’도 잘된다. <끝>도 ‘새벽’과 같이 꼭 삼위와 대화하고 생각하고 끝내라.
13. 시작에 받고, 과정에 쓰고, 끝에 깨끗이 매듭짓고 완성하는 것이다.
14. 하나님은 ‘처음’에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과정’ 역사를 쓰고, ‘끝’에 열매 맺듯 창조 목적을 휴거로 완성 하셨다.
15. 처음에 낳고, 과정에 기르고, 나중에 취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신다.
16. 하나님은 낳고 기른 대로 ‘종’으로, ‘자녀’로, ‘신부’로 취하고 대하신다. <끝>에 ‘완전한 삼위의 상대, 신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사신다.
17. 안 따지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산다.
18. 어느 때는 시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글을 쓰다가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이러다 날 새겠다.’ 싶어서 날 이 새기 전에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글을 썼다. 그러다 또 순간 밖을 보니 깜깜해서 ‘구름이 껴나?’하고 확인하니 밤 10시가 되었다. 의식하지 않고 빠져서 하면 시간도, 때도 지나갔는지 모른다.
19. 기성은 어려서 역사도, 수학도 모른다. 그러니 ‘때’를 모른다. 이미 때가 지나서 해가 지는데도 뜨는 해로 생각하고 산다. 이제 해가 안 뜨니, 모두 마음 접고 살 것이다.
20. 구시대 인식과 사고가 뇌에 박히고 가득 차서 정질(定質)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사니, 새 역사에 와도 늦다. 언제 접붙이고 키워서 새 역사의 열매를 맺겠느냐. 지금은 새 역사에 와서 크고 자라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을 이루고, 당세에 행할 것들을 행하며 1000년 성약역사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월명동 자연성전 만들듯 온전히 해 놓 아야 된다.
21. “구시대인들이 아직 안 왔다. 아쉽다. 억울하다.” 할 필요가 없다. 올 자들은 다 오고, 사명 못 한 자들은 걸려져서 나갔다.
22. <정말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을 붙잡듯 붙잡고 늘어져서 한 명도 안 뺏기신다. 성경에 하나님은 “내 귀한 자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느냐.” 말씀하셨다.
23. 어느 때는 기도할 때 정말 귀한 자가 나갔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를 상징으로 보이시며 ‘금이 가서 깨진 돌’로 보이시고, ‘겉만 금칠한 모조품’으로 보이셨다.
24. 하나님은 저마다 살아온 대로 다 보시고 ‘진짜 금덩이 인생’은 큰 값을 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듯 하신다.
25. <하나님이 택한 자>는 키가 작아도, 뚱뚱해도, 얼굴이 곰이나 원숭이나 황소나 돼지같이 생겼어도 그것을 다 ‘희귀 종’같이 보시고 자랑하며 증거하신다. 하나님은 ‘마음’ 보고 택하시고, ‘행위’ 보고 택하시고, ‘사랑’ 보고 택하신다.
26. <육>은 늙고 불품없어도 그 ‘영’은 천하일색, 미인이었다.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판단하시니 ‘녹아 없어지는 눈덩이’를 택하지 않으시고, ‘흰 돌덩이’를 택하고 손에 쥐고 계셨다. 만산(滿山)에는 초록이 우거져 영영한데, 흰 눈은 시대가 가니 하나 없다. 때가 가면 눈이 녹아 없어지듯 육체 덩이도 사라진다.
27. 젊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니 제 갈 길로 가고, 다 늙어서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 다 늙고 힘이 없으니 쓸 수도 없고,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 쓰기도 부족하다.

28. <결혼한 자>와 같이 모두 ‘하나님 역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어디를 가나 열심히 해야 된다. 하루 이틀 고용한 자와 같이 일하고 돌아가듯 하면, 그렇게만 쓴다.

29. 결혼했으면 그 집안을 자기 것으로 삼고 책임지고 살듯,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것도 제 것으로 삼고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구경꾼이 되면 구경꾼으로만 사용되고 그 차원의 기쁨만 누린다.

30. 결혼해서 자기 것이 되듯 했으니, ‘하나님의 전, 주의 몸’인 <자연성전>도 책임지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 자연성전도 모두 두 평씩 다 자기 것이다. 그런데 두 평 가지는 만들 수가 없으니, 뭉쳐서 하나로도 만들고, 골고루 만들어 놓았다. 고로 “자기 것이 그리 큰 것이 있다.” 하고 살아라.

31. 결혼했는데 남편 집에 큰 정원이 있으면 ‘자기 것’이니 같이 쓰고 관리하며 살듯, 하나님의 시대 신부들도 ‘하나님의 전, 자연성전’은 ‘자기 것’이니 같이 쓰고 관리하며 살아라.

32. 때가 되면, 구경꾼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귀하고도 아름답고 신비하다.” 하며 부러워할 것이다. 모두 하나님을 구상하시고, 보낸 자를 시켜 이 시대 따르는 자들과 같이 만든 것이라고 증거해라.

33. 수십 년씩 애를 써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놓았어도, 병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자들을 불러서 쓰고 증거하게 한다.

34. 여기저기 사연들이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연결되어 있으니, 말해 주고 증거해라.

35. <유럽의 성전들>은 성전 안에 ‘조각’을 만들어서 증거했다.

36. <이 시대>는 시대가 다르니, 자연에 성전을 만들어서 그 안의 ‘형상과 사연이 있는 돌, 바위, 나무, 물’들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증거하게 한다. 모두 주인과 연결되어 있으니 깨달아라. 하나의 소나무로만 보고, 하나의 형상적이나 돌 작품으로만 보면 ‘육적인 자’다. 야심작 백보좌 형상도 하나의 돌 조경으로만 보는 자는 ‘구경꾼’이다. <야심작 백보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좌정하심’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야심작 백보좌 형상’을 친히 구상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 무너트리시고, 여섯 번째에는 기어이 쌓게 하셨다. 그 형상을 제대로 못 만드니 다섯 번 무너트리시고, 여섯 번째에는 제대로 만드니 하나님은 “됐다. 보기에 좋다. 백보좌 형상과 비슷하다.” 말씀하셨다.

37. <월명동 전체 지형>이 ‘보좌 터’다. <월명동 전체 지형>이 ‘큰 보좌’라면, <야심작>은 ‘하나님의 보좌’를 ‘축소’한 것이다. 세상에서도 제일 높고 편한 자리에 의자를 만들어 놓고 편히 앉고 쉬듯,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곳을 두시고 그곳에 좌정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어 월명동을 ‘보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백보좌를 축소한 ‘야심작’을 만들게 하셨다. 이같이 만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어라.

38. <세상에서 살 때>도 앉을 때 편한 ‘의자’를 놓고 쓰고, 누울 때 편한 ‘침대’를 놓고 쓰고, 생활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쓰듯이 하나님도 천국에 이같이 만들어 놓고 사신다. <천국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중심 보좌’ 외에도 가는 곳마다 ‘의자’ 같은 보좌를 놓으셨고, 머물러서 편히 쉴 수 있는 ‘집’도 놓으셨고, ‘정원’도 놓으셨고, ‘성’도 놓으셨다. <자연성전>도 그러하다.

39.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보좌’뿐 아니라 ‘무릎 위’에도 앉히신다.

40. 월명동은 ‘자연’으로 형상화한 ‘하나님의 몸’이다.

41. 하나님은 항상 ‘상징’을 쓰고 나타나신다. 고로 월명동에 가면 하나님을 불러라. 그리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물어보아라.

42.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노래 가사대로 세상이 알고 찾아오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온 자들이 하나의 ‘징조’다. 유명하게 만들어라. 청중들이 모여든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8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태양’으로 상징하여 나타내신다.
2.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하나의 비유’나 ‘상징’을 쓰고 나타나 역사하신다. 가령 <지구>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몸’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만물들을 ‘하나의 비유’나 ‘상징’으로 쓰고 나타나시고 계시하신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체 창조물이니, 그 창조물을 ‘글’이나 ‘말’로 삼고 보이며 읽고 듣게 하신다. 고로 만물의 글과 말을 배우면, 일순간 수백 개 언어를 하듯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다 통한다. 신이 되어 통한다.
3.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보이며 마치 한 사람에게 말하듯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과 통하신다. 가령 “모두 전심을 다 해 뜨겁게 살아라.” 했다면, ‘해’를 보여 주면서 깨닫게 하신다. 고로 일순간 다 전달하신다. 사람의 언어로 하려면 각 나라 언어별로 해야 하니, 한 세월이 갈 것이다.
4. 섭리사에 가르쳐 줘어도 못 하니, ‘하늘 글, 하늘 말’ 문맹이다.
5. 어느 나라든지 말이 글로 표현되고 발달하면 나라 형성이 먼저 되게 된다. ‘만물의 언어’는 섭리사에서만 듣고 쓰는 언어다. ‘진리의 말’이며, ‘하나님 언어의 계시’다. <섭리사>도 모두 ‘하늘 글, 만물의 언어’를 쓰고 발달시켜라.
6.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되기 어렵다. 고로 삼위는 한 단계 밑의 ‘만물’로 다양하게 보여서 표현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7. 하나님은 세상의 수만 개 단어를 ‘만물’로 표현하며 쓰신다. 세상에 그에 해당되는 만물이 다 있으니 언제든지 쓰신다. 또 ‘영의 것’으로도 보이시니 수억만 가지의 단어가 된다.
8. <만물이 없을 때>는 ‘마음’으로 그 만물이 생각나게 하신다. 혹은 ‘꿈’을 통해 거기에 해당되는 만물을 보여 계시하신다. 어느 때는 ‘자기 몸’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신다.
9.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과 대화하여라. 그리함으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여라.
10. 사랑하는 자는 대화를 많이 한다. 안 하면, ‘사탄과의 대화, 세상과의 대화’에 중심을 두게 된다.
11. 하나님은 ‘한 가지’ 만물을 가지고도 ‘열 가지, 백 가지’로 통하신다.
12. 가령 나무 하나 가지고도 어느 때는 ‘나무를 손질하듯 신앙도 관리하라.’ 하며 계시하시고, 어느 때는 ‘개미가 파먹으니 나무가 병들 듯 신앙이 병든다.’ 하시고, 어느 때는 ‘싱싱한 나무와 같이 신앙이 싱싱하다.’ 하시고, 어느 때는 ‘위 치와 사명’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신다. 월명동 나무도 개미가 파먹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라. 자기를 파먹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해라.
13. 키워야 아름답다.
14. 퇴비하고 키우면 변화되어, 우아하고 아름다운 솔이 된다. 저마다 월명동에 있는 소나무 하나씩 정해서 퇴비도 하고, 병들지 않게 관리하고, 애인같이 키우면서 사연도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나무로 계시하시고 대화하신다.
15. 당세에 거목을 보려면, 퇴비하여 키워라. 예전에 못생겨서 베어 버리려고 한 작은 소나무가 있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베지 말아라. 거름 주면 커서 멋있게 된다.” 말씀하시어 안 베고 키웠더니 지금은 커서 거목이 되었다. 잔디밭 위쪽 전망대 가는 길의 우측에서 크고 있다. 생명들도 어릴 때는 말도 안 듣고 품위도 별로 없다. 자꾸 키우면 다른 자가 되고, 소나무 작품이 되듯 작품이 된다.

16. 1978년에는 월명동 앞산, 뒷산, 옆 산 어디에도 멋있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회골 능선에 큰 것이 몇 그루 있어서, 큰 소나무를 보려면 거기까지 700m를 가서 봤다. 지금은 그런 큰 소나무들이 운동장 옆에도 많고, 뒷산과 옆 산에도 즐비하다. 섭리사예의 사람들도 20년, 30년 전에는 거목이 없었다. 지금은 즐비하다. <말씀>을 퇴비로 주어, 먹고 듣고 행하여 자랐기 때문이다.

17. 월명동을 초기에만 본 자들은 “거기에 돌을 쌓는 것도 보고 나무도 봤는데, 큰 나무도 없고 돌로 조경도 조금 쌓았다.”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가 보라고 하니, 보고 와서는 탄 세상이 됐다고 했다. 초기에 나간 자나 월명동 개발 중간에 나간 자들은 월명동이 그때 같은 줄 안다. <섭리사>도 그때 같은 줄 안다. 나간 자들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섭리역사는 날로 창대하게 된 것이다. <한국>도 20년, 30년 전에 다녀간 외국인들은 그때 같은 줄 안다. 지금 와서 전국을 다녀보면 달리 본다. 한 도시가 몇 개씩 번져 나가 신도시가 생기고, 수십 개의 도시가 생겨 도시로 꽉 차서 다 세기도 힘들다. <섭리사>도 교회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후 십 년이 되니 ‘열 개’가 되고, 또 십 년이 되니 ‘백 개’가 되고, 또 십 년이 되니 ‘수백 개’가 됐다. 지금은 교회가 서로 뭉치니, 교회 수는 줄고 교인 수는 불어난다. 100년이 가면 ‘500개’가 되고, 200년이 가면 ‘1000개’가 되고, 300년이 가면 ‘몇천 개’가 되고, 400년이 가면 ‘몇만 개’가 되고, 500년이 가면 ‘십만 개’가 되고, 700년이 가면 ‘수십만 개’가 되고, 1000년이 가면 ‘수백만 개’가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다. 당세에 알고만 갈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개발하면 작은 산들이 없어지듯 불신자, 악평자들은 없어진다.” 하셨다. <예수님 때>도 당세에는 다 못 보고 했지만, 결국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한 종교’만 2000년 동안 왔다.

18. <기름진 땅, 새 역사의 땅>에서 크는 것을 못 따라온다. 석막리에도 큰 소나무는 회골에만 있었다. 그런데 이제 월명동에도 다른 곳과 비교도 안 되게 크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소나무 수백 주가 크고 있다.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19. <관리>가 아름답게 한다. <자기>도 ‘관리’다. <생명>도 ‘관리’다.

20. <인공 폭포>도 ‘월명동에 있는 것’이 최고다. 이같이 개발해서 해발 400m 높은 지역에 폭포수가 흐르는 곳도 없고, 1000m 길이의 연회장 돌 조경에 폭포수를 만든 곳도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의 구상이니 사연이 깊고, 그리 높은 곳에 크고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누가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사람을 쓰고 만들었다. 모두 증거하며 가치 있게 써라.

21. 선생이 30년 전에 전세살이 할 때, 그 집의 돌 조경을 보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놔야지.’ 했다. 그리고 그 집에 소나무도 몇 주 있어서 관리해 주면서, ‘하나님 성전에 소나무도 심고 멋있게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다. 이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보여 주며 계시하시어 내 마음에 ‘조경의 씨’를 심어 주셨다.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자연성전’을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자연성전’이다. 하나님은 성약역사에 자연성전을 계획적으로 구상하시고 만드셨다. 건물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성전을 축소한 ‘자기 몸’도 이같이 개발하여 만들어라.

22. 월명동 자연성전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상의 황금성 천국’이다.

23. 월명동 지역은 ‘하나님의 백보좌 형상’으로, ‘하나님의 최고 보좌’자리다.

24. 대둔산은 병풍같이 둘러 흐르고, 산맥들이 월명동으로 흘러내렸다.

25. 월명동은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백보좌 형상, 자미원 형상, 초승달 지형, 금계포란 지형, 생명이 잉태되는 여자의 자궁 형상, 금단의 열매 형상, 좌청룡 우백호가 둘러싼 형상’을 갖춘 1000년 역사의 ‘천하의 길성지’다.

26. 온천에서 온천물이 솟듯, 샘에서 샘물이 솟듯, <하나님의 보좌 터>에서 ‘말씀의 강, 사랑의 강, 생명 역사의 강, 평화의 강, 개혁의 강, 선악 간에 축복과 심판의 강, 관리의 강, 건강의 강’이 온 세계로 흘러간다.

27.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땅의 백보좌, 자연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들이 끊이지 않도록 행하여라. 항상 기도하여라.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존재물이든 ‘미(美), 아름다움’을 볼 때는 ‘얼마나 그 존재물대로 제대로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다.
2. 가령 축구공이 있는데, 길게 생겼으면 못생긴 것이다. 축구공의 개성대로 아주 동그랗게 생겨야 잘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물이 ‘그 존재물의 개성’에 따라 다 갖췄으면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한다.
3. <사람>은 수십억 가지의 ‘개성’이 있다. 고로 수십억 가지로 각각 ‘미, 아름다움’을 본다.
4. <만물>도 사람처럼 ‘존재물의 개성’대로 수억 가지로 ‘미와, 아름다움’을 본다.
5. <동물>도 그 ‘종류’대로 ‘미, 아름다움’을 본다.
6. 흔히 사람들은 사슴이 아름답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토끼는 사슴처럼 안 생겼는데, 토끼가 아름답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토끼는 토끼같이 생겨야 그 존재물의 개성대로 “아름답다. 잘생겼다.”라고 한다. 토끼는 눈이 크고 꼬리가 짧고 귀가 길게 서야 되는데, 귀가 고양이 같이 짧거나 눈이 코끼리같이 작으면 “토끼가 못생겼다.”라고 할 것이다. <그 존재물의 기준>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 그 존재물의 미와, 아름다움이 좌우된다.
7. <사람>은 ‘개성’으로 아름다움을 따지고 본다.
8. <과일>도 각 존재물의 ‘종류’대로 긴 것은 길게, 둥근 것은 둥글게 존재한다.
9. <먹는 것>은 ‘모양과 형상’보다 ‘맛’을 ‘미’로 보고 좋아한다. 가령 수박은 둥근 것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지만 그 ‘모양과 형상’보다 ‘맛’을 보고 더 좋아하고 ‘맛의 미’를 갖췄다고 한다. <사람>도 ‘생긴 것’보다 ‘인생의 맛, 개성의 맛’이 더 크다.
10. 사과나 수박이나 배나 모두 ‘모양과 형상’은 아름답고 예쁜데, ‘맛’이 없으면 먹다 만다. ‘맛’이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이 ‘미’까지 좌우한다.
11. <지역>도 ‘모양과 형상’이 아름답거나 좋으면 먼저 눈에 띄어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아름다움, 더 큰 미는 ‘얼마나 그 속에 얹힌 각종 이야기와 뜻과 사연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그 속에 얹힌 각종 이야기의 맛>이며, <뜻의 맛>이며, <사연의 맛>이다.
12. <모양과 형상>도 ‘미, 아름다움’을 갖추고, <그 속에 얹힌 뜻과 사연>도 ‘미와, 아름다움’을 갖춰서 마치 과일이 맛 있듯 하면, 더욱 ‘최고’가 된다.
13. <집>도 ‘모양과 형상’이 좋아야 하고, 그 속에 만들어진 ‘사연과 뜻’도 좋아야 한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갖춰졌느냐에 따라 “마음에 드는 맛이다. 좋은 맛이다.” 한다.
14. <월명동>도 기암절벽 비경이나 물이 흐르는 계곡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한 곳이니 최고의 ‘뜻과 사연의 맛’을 가지고 있다. 고로 하나님은 ‘그 뜻과 사연’에 맞춰서 ‘천하의 비경’이 되도록 구상하시고 개발하셨다. <대둔산>은 기암절벽 비경이나 월명동만큼 맛은 없다. 하나님의 뜻과 사연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궁’이 아니기 때문이다.이것을 알고, 월명동을 써야 된다. 월명동을 제대로 보아라.
15. <음식>도 ‘맛’, <사람>도 ‘맛’, <만물>도 ‘맛’이다.
16. <존재물의 맛>을 최고로 본다. <음식>도 아무리 모양을 멋있게 하여 기교를 부려 놓아도 ‘맛’이 없으면, “보기보다 별로네.” 하고 먹다 말고 다시는 안 먹는다.<말씀>도 그러하다.

17. 흔히 ‘생긴 것은 사과인데, 맛은 개살구다.’ 한다. <사람>도 그런 자들이 많고 많다. 지구 세상 수십억도 넘는다.
18. <설교를 어떻게 전하느냐>는 ‘모양과 형상’과 같고, <설교 내용>은 ‘맛’과 같다.
19. <전하는 자>가 발음, 목소리, 강약, 제스처를 맛없게 해서 전하면, 들으면서 ‘핵심’을 기록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다시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라. ‘맛있는 설교’이기에 그 ‘내용’을 다시 읽고 느끼고 깨달으면, 다시 맛있게 먹게 된다. <말씀 내용>은 맛있다. 다만 전하는 자가 목소리, 표정, 제스처 등 ‘모양과 형상’을 그리해서 맛이 없는 것이다. 고로 다시 요리해서 먹으면, 제대로 맛을 느끼고 깨달게 된다. 그래도 맛이 없다는 자는 그 맛을 제대로 몰라서다. 지금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맛있게 맛을 내서 주셨다. 고로 내용도 구상도 최고로 맛있다.
20. 본인만 기도하고 정상이면, 아주 맛있고 깊은 ‘말씀의 음식’이다.
21. 꿈에 보면, <말씀>을 ‘맛있는 음식’으로 보이시고 말씀을 받게 하신다.
22.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꿈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예쁜 한 존재물’을 보여 주셔서 성령님께 이 존재물은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상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각 존재물의 아름다움, 미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그 존재물대로 생겼느냐를 보는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사람을 볼 때도 ‘미인의 얼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안 된다. 그 미인같이 생겨야 ‘아름답다. 미인이다.’ 하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과 모양이 개성대로 잘생겼으면 아름답고 예쁜 것이다.” 하셨다. <동양과 서양>의 ‘미의 기준’도 다 다르듯이, 각 개성대로 미와,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23. <음식>도 ‘그 존재물의 맛’이 나야 “최고다.” 한다.
24. 가령 어떤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은 ‘그 과일의 맛’이 나야 “맛있다. 최고다.” 한다. 다른 과일 맛이 나면, ‘맛의 미’가 아름답지도 않고, 좋지도 않다. <사람>도 자기 사명대로 행해야 ‘그 사명의 맛’이 나서 아름답다.
25. <사과>는 ‘사과의 맛과 향기’가 나야 “별미다. 좋다.” 하듯이, <사명>도 ‘사명의 형상과 행위’가 분명해야 “그 삶의 맛과 향기가 충만하다.” 한다. 그런 자는 자기가 가진 ‘형상과 개성의 아름다움, 미’가 최고로 빛나는 자다.
26. <자기 개성과 사명의 맛>을 내지도 않고 별로라고 한다.
27. <주>는 그 존재대로 ‘주의 사명과 행위’를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기 때문에 그리 살아간다. 그런데 무지하니, “왜 예수처럼 그리하나? 예수냐? 메시아냐?” 하며 “이단이다.” 한다. <존재물의 형상과 사명>대로 말씀하고 ‘그 맛과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모르는 자들, 악평자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하면서 배척했다. <예수님 때>도 메시아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형상과 사명’대로 제맛을 내며 존재하는데, 무지하니 그리한 것이다.
28.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다. <구시대 유대 종교인들>을 ‘건축자’로 비유하고,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을 ‘예수님’으로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아서 그 맛을 내고 향기를 풍긴다. 그런데 구시대 유대 종교인들은 마치 건축자들이 벽을 쌓다가 모양이 달리 생긴 돌이 있어서 “너는 여기에 들어올 돌이 아니다.” 하며 그 머릿돌을 굴러 버리듯,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고 다르다고 하면서 배척했다. 고로 나중에 벽을 다 쌓고 큰 기둥을 세우려는데 머릿돌이 없었다. 주를 알고 따르는 자들이 주를 머릿돌로 삼고 그 집의 기둥을 세우고 ‘신약의 집’을 완성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9. 제 개성과 형상대로 맛을 내고 향기를 풍기는데, “왜 나랑 다르지? 왜 저런 향기를 풍기지?” 하며 배척하는 자는 ‘무지한 자’요, ‘자기만 아는 자’다.
30. 가령 자기는 ‘수박’인데, ‘바나나’에게 “너는 왜 길고 맛도 다르냐?” 하면서 배척한다. <수박>은 ‘수박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맛을 내고, <바나나>는 ‘바나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 맛을 내는 것이다.

31. 모두 개성대로 사명대로 하니, 깨달아라.

32. 주 안에서도 ‘모양과 형상’이 다르고 ‘개성과 사명의 맛’이 완전히 다르다. 다만 <자기 개성과 사명대로 행하는 자>는 ‘그 존재의 아름다운 맛과 향기’를 풍기고, <자기 사명을 벗어나 썩는 행위를 하는 자>는 ‘썩는 냄새’를 풍긴다. 고로 그릇된 행위, 썩는 행위는 모두 고치고 자기를 만들어라.

33.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모든 이치를 깨닫고 보아라.

34. 저마다 위치와 사명이 다르니, 지도자들은 이것을 깨닫고 대하여라. ◎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8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따르는 자들이 열 개 중에 한두 개 못하면, ‘못한 것’을 가지고 ‘잘한 것’까지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글만 교정하듯 잘못된 것만 말해 주고 교정해 주어라. 그래야 본인도 인정하고 고친다. 다른 내용은 다 잘됐는데 ‘잘못된 내용’만 보고 다른 것도 다 잘못됐다고 하면, 이는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2. 누가 어떤 것을 잘못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것도 다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몰아붙인다. 공의를 벗어난 행위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여 그에 대한 대가의 형을 줘야 반성하고 회개한다.

3. 어떤 자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잘한 것까지 지적하고 죄로 말한다. 부당하고 억울하게 대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리 대하면, 따르는 자들이 “무능한 자다. 억울하다.” 한다. 고로 그 행위를 죄로 보고 “그 죄값을 받으라.” 선고하고 죄값을 받게 한다.

4. 교회 운영을 그리하여 문제가 많이 생겨서 편지가 온다. 제대로 ‘공의’로 대하여라.

5. 어떤 목사는 “나는 30년 전, 20대 때 선생님 옆에서 배워서 많이 안다. 너희는 이제 3년, 5년 돼서 선생님 옆에 가까이 안 있었으니 모른다.”라고 하며 가르친다. 그 말을 듣고 선생은 이제 온 3년, 5년 된 자들에게 편지해서 그 목사보다 더 알게 가르쳐 줬다. <휴거 말씀>이 나오고 나서 옛날 말씀은 그 말씀과 비교도 안 되고, 전초에 불과하다. 20년, 30년 전에는 섭리사 인원이 얼마 안 되니,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집회 때도 수백 명, 수천 명 정도였다. 지금은 인원이 많아져서 수만 명씩 되니, 거리는 멀다. 그러나 때에 따라 차원 높은 말씀이 나왔으니, 옛날과 비교가 안 된다.

6. 월명동 토목공사 하던 때와 돌을 쌓던 때가 다르고, 또 지금 하는 공사가 다르다. 이와 같이 ‘예전에 하던 것’과 ‘지금 하는 것’이 다르다. 이제 온 자들이 늦게 왔다고 선생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며 수십, 수백 통씩 편지해서 그에 맞게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이들을 모아 놓고 옛날 수십 년 전에 온 자들이 그때 배운 것만 이야기하며 가르치니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들’을 가르치는 격이다. 이제 온 자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때의 것은 모른다. 그러나 지금 각종 영의 세계와 휴거에 대해 직접 배워서 그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며 산다.

7. 하루 종일 손자들에게 옛날이야기만 하니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사만 하고 그 이야기는 안 듣는다. 옛날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을 손자들이 배우고 실천하겠느냐. 지금은 지금 해당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며 된다. 옛것은 옛날로 끝나고, 지금은 새것이다.

8. 이제 온 자들에게 “옛날에 나는 선생님께 직접 배워서 안다. 너희는 직접 안 배워서 모른다.” 하는 자들은 모두 ‘실수를 하는 자들’이며, ‘잘못된 자들’이다. 옛날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로 가르쳐 주고 계시해 줬다. 고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로 알고, 그 교육을 받지 말아라. 옛날이야기를 듣고 보려면, 그때 선생이 직접 외쳤던 화면으로 보아라.

9. <사람이 이미 살아온 것>은 다시 살지 못하니, 끝나 죽은 것이다. <과거의 지난 것>은 다시 못 하니, 끝나 죽은 것

이다. 왜 끝나서 죽은 것을 가르쳐 주느냐. 모두 생색내는 자들이다.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배운 것이 없으니 그리한다.

10. <옛날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새 집을 지어 놓고 그 안에 ‘옛집에서 쓰던 것들’을 쌓아 놓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다시 헛 집 같다.

11. 월명동에 폭포수 만들어 놓은 곳을 보아라. <옛것>은 싹 없애고 새것으로 쌓았다.

12. 어떤 자는 옛날에 자기를 서운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 계속 그 주관권에서 사니, 임무를 주지 못한다.

13. 옛날에 서운했어도 싹 버리고 행하는 자들은 딴 세상에서 ‘새것’을 얻고 살아간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 부딪히고 몰라서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말아라. 어서 옛것을 다 장사 지내라.

14. 어떤 자가 편지하길, 자기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는데 다 버리고 주만 보고 왔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못 견디고 나가고, 자기는 견디며 왔다고 했다. 고로 그에게 “잘했다. 당한 것들 치료하고, 산 넘고 강 건너와서 휴거됐으니, 얼마나 잘했느냐.” 하고 편지를 해 줬다.

15. 누구한테 서운하고, 무시당한 것들을 모두 마음에서 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것을 쥐도 못 받는다. 고통받은 만큼 그로 인해 더 결심하고 행하는 기회가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로 인해 더 결심하고 자기 갈 길을 가며 10배 더 행해라.

16. 어떤 자가 목회 사명을 달라고 해서, 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자기와 같이 크던 자가 목회를 한다고 하며 너무 거리를 두고 대한다고 더는 못 견디겠다고 편지가 왔다. 그에게는 “내가 연단이 다 된 것 같다. 때가 됐구나.” 하고 다른 사명을 주었다. 그 목사보다 높은 사명의 위치다. 지금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계속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있을 때 잘해 줘라. 모두 실습 끝나면, 자기 위치에 갈 자들이다.

17. 어떤 자는 10년 동안 전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도자가 자기를 추천 안 한다고 본인이 사연을 이야기하며 편지가 왔다. 지도자가 못 보니까 그리하고, 관심이 없으니 그리한다. 그에게는 “자기 공적은 자기가 제일 잘 아니, 본인이 올려라. 강도사 될 때도 지났으니 목사 신급을 준다.” 했다. 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을 보고 준다.

18. 전도를 못 했어도 교회에 충성하고, 강의와 관리를 잘하면, 그 공적을 보고 신급을 준다.

19. 어떤 자가 전도도 못 하고, 강의도 못 하고, 공적이 없는데 전도사를 하고 싶다고 원하기만 하여 심사해 보니, 그 사람은 강도사를 줄 자였다. 고로 신급을 주고 “잘했다.” 했다. 환란 중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 사랑’을 한결같이 열렬히 한 자였다. 변함없이 자기 신앙을 지킨 것이다.

20. 직책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도자들이 몰라서 못 받은 자들은 본인이 올려라. 용기가 안 나서 못 올리면 다른 자에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용기가 안 나면 기도로 주께 의논해라. 그러면 꿈에 합당한 대로 주니, 받으면 된다. 꿈에도 못 받으면,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육에게 신급을 주고 열 내서 해라.

21. 선생도 어릴 때 석막교회 다닐 때, 집사도 안 되고 반사도 안 되고 신급이 없었다. 그때 ‘노방전도 하면서 전도하면 전도사구나.’ 하고 깨닫고, ‘나는 전도사다.’ 생각하고 뛰었다. 그러다 전도한 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니, 그때는 ‘내가 교역자구나.’ 생각하고 가르쳤다.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직책과 신급’이다. 순회하면 순회사, 강의하면 강사, 전도하면 전도사다.

22. 어떤 자는 일반 회원이 보고 그리 열심히 한다고 하며 추천을 해 온다. 행위 보고 검토하고 신급을 주었다.

23. 어떤 자는 지도자가 자기 신급을 안 올린다고 불만이 많다. 지도자가 제대로 모르고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 자들은 본인이 올리면 된다.

24. <모양과 형상의 맛>이다. ‘신급’도 그러하다. 모양과 형상을 갖추듯, ‘행위의 형상’을 갖춰라.

25. 어떤 자는 자기가 전도했는데 다른 자가 피스넷에 올렸다고 전도할 맛이 안 난다고 한다. 영계에서 보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것은 ‘자기 공적’이 된다. <육계>는 착오가 있어도, <영계>는 일점일획도 억울함 없이 다 ‘공의’대로 올라간다.

26. <착오 있는 것>은 참고해서 신급을 주고 인정한다.

27. 성령과 주가 그를 쓰고 같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안 올라가고 다른 자가 올라가면, 성령과 주께도 착오가 된다.

28. 어떤 자는 자기가 손댄 자를 다 올리기도 한다. 그러니 ‘한 명’을 두고 전도자가 두 명, 세 명 이상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다른 자에게 연결하지 않기도 한다.

29. 여러 명이 손대서 전도했으면, 각자 행한 만큼 20점, 30점, 50점씩 가산이 된다.

30. <아예 나갔던 자>를 다시 살린 자가 있으면, ‘다시 살린 자’가 전도한 것이다. 처음 전도자는 이미 뺀 것이고, 사연만 있게 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자가 나은 격이다.

31. <말씀을 몇 개만 배우고 나간 자>를 다시 나오게 한 자도 제2의 전도자가 된다. 고로 ‘다시 나오게 한 자’에게 전도 공적을 올려야 된다.

32. 어떤 자는 나갔다가 3년 만에 다시 오기도 한다. 이런 자는 마치 사탄이 지옥에 끌려다가 던지는데 자기가 사탄을 붙잡고 안 놓고, 그 사탄을 내던지고 다시 돌아온 격이다. 이런 자들 역시 ‘찾고 이끈 자’가 전도자다. 처음의 전도자는 그 공적이 사라지고, 제2의 전도자가 그 공적을 받는다.

33. <스스로 다시 나온 자>는 본인이 전도자가 된다. <성령과 기도한 자>도 전도자가 된다.

34. 성령과 주가 그 사람을 쓰고 전도했는데 다른 자가 자기가 손땀다고 하며 자기 공적으로 올리니, 성령과 주는 확인하고 ‘영계 서류’에 ‘공의’대로 그 공적을 올려놓는다.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도 ‘짹’ 찾기가 정말 어렵다.

2. <만물>도 ‘매치가 되는 짹’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다.

3. 형상이나 모양이나 사연들이 쌍둥이같이 서로 닮아서 ‘짹’이 되기가 어렵다.

4. <제시간>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하는 자는 마치 매치가 되는 짹을 만나 사는 자와 같다. ‘시간과 때’와 ‘그 때 맞는 합당한 일’이 잘 매치되어 존재하는 삶이다.

5. 가령 결혼해서 남녀가 같이 살게 됐다 하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은 것’을 가졌으면, 기쁨은 ‘한 개’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을 가졌으면 그로 인해 각각 기쁨을 얻으니, 기쁨은 ‘두 배, 세 배’가 된다. <남자>가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자>도 ‘도시’에 집을 가졌으면, 별로다. <여자>는 ‘도시’에 집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산속’에 가지고 있으면, 서로 ‘짹’이 되니 좋다. 또 <남자>가 ‘귀중품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것이라 별로다. 이는 마치 축구공만 두 개를 가진 것과 같아서 축구만 할 수 있는 격이다. 축구공과 배구공을 각각 가졌으면,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니 두 가지로 기쁨을 얻고 누린다.

6.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서로 ‘짝’이 되게 창조하셨다. 고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짝이 되면, 이는 ‘비원리적’이다. 마치 같은 쌀밥인데 이 밥 저 밥 넣고 비비는 격이다. 서로 다른 쌀밥과 보리밥을 넣고 비벼야 ‘쌀밥의 맛’도 나고, ‘보리밥의 맛’도 나고, ‘둘을 섞은 맛’도 나서 ‘세 가지’ 맛이 나니, “맛이 좋다.” 한다. <사람>도 <만물>도 모두 그러하다.

7. 월명동에도 소나무만 두 주 있는 것보다 하나는 소나무, 하나는 느티나무로 존재하면 서로 ‘짝’이 되어 매치가 된다. 그러면 <느티나무> 밑에 앉아서 그 옆의 소나무를 쳐다보며 ‘소나무의 멋과 아름다움’도 느끼고, 또 <소나무> 밑에 앉아서 옆의 느티나무를 쳐다보며 ‘느티나무의 맛’도 느낀다. 또 <운동장>에서 ‘두 나무의 조화’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낀다.

8. 또 <바위>만 두 개를 놓는 것보다 바위를 하나 놓고, 그 옆에 소나무를 심는 것이 ‘짝’이 되어 더 아름답다. <큰바위얼굴바위>도 ‘소나무’를 짝으로 삼아서 옆에 심었더니, 바위를 두 개 놓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았다.

9. 사람이 각자 개성도, 생긴 것도 극으로 달라도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짝’이 되어 사명을 하게 하신다. 하나는 ‘내적 증인’이고, 또 하나는 ‘외적 증인’이다. 교회 안에서도 보다 ‘내적 증거’를 하며 사명을 할 자와 보다 ‘외적 증거’를 하며 사명을 할 자가 있다. 그런데 서로 생각도 행실도 안 맞다고 한다. 결혼했어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생각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한다. 하나는 뜨거우면, 하나는 시원해야 짝이 된다. 그래야 더울 때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하지 않겠느냐. 자기와 ‘생각’이나 ‘하는 방식’이 달라도 하나님은 각자 개성을 보고 좋아 쓰시니, 넓게 보고 행하여라.

10.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로 조화롭게 짝을 지어 주고 사명도 하게 하신다. 때가 되면 조화도 바뀐다. 모두 각자 원하는 대로 폭포수같이 조화를 이뤄라.

11. <잔디성전 옆에 있는 작은 폭포수>는 ‘일정하게’ 흐른다. 형상을 봐야하기에 그러하다. 흐르는 양이 변하면 그 형상을 이해하지 못 하니, 일정한 양으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내려온다. 마치 시골 여인이 떡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논두렁길을 걷는 것같이 하나님이 구상한 모양 ‘그대로’ 수수히 흐르는 형상 폭포다. <6수>는 끝내 주는 숫자다. 고로 숫자도 넣고, 모양과 형상도 넣고 구상하고 만들었다. 그리고 심기 어려운 소나무도 그곳에 심게 하였다. 곧 ‘여자, 신부 상징 폭포’다. <남자 상징 폭포>도 있다. 여기에도 형상을 상징적으로 넣어서 만들었다. 호수 옆의 큰 폭포다. ‘하나님 상징 폭포’이며, ‘남자 상징 폭포’다. <연회장 폭포>는 ‘성령님 상징 폭포’이며, ‘여자 상징 폭포’이며, ‘시대 신부 상징 폭포’다. 이같이 폭포수는 아예 색다르게 ‘세 가지’로 흐르도록 구상하고 만들어 놓았다. 모두 달라도 ‘세 개’는 ‘삼위일체’와 같이 짝이다.

12. <소나무>도 앞산 야심작에 심고, <돌>도 ‘짝’이 되게 세웠다.

13. <운동장>과 <잔디>는 서로 극이면서도 ‘한 쌍’을 이룬다.

14. <감나무>도 ‘크고 작은 것’으로 ‘쌍’이 되게 놓고, 어떤 것은 크기는 같되 ‘모양과 형상’이나 ‘사연’에 따라 ‘쌍’이 되게 남겨 놓았다. 모두 여섯 쌍이다.

15. 하나님께 <바위>도 두 개씩 ‘짝’이면 좋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은밀하게 바위를 두 개씩 짝으로 놓으셨다. 하나는 성자바위, 하나는 납작한 형상의 여성 바위다. 하나님은 모양도 형상도 서로 전혀 다른 바위를 놓으시고, 보는 자들이 보고 좋아하게 하셨다.

16. <소나무>도 두 주씩 같이 있게 하되, 전혀 다른 것을 상징하게 하고 ‘짝’으로 보게 한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모양과 형상이 다르지만 짝으로 심어 놓은 것도 있다. 키가 큰 소나무를 심고 그 밑에 성전 안 분재 솔을 놓아서 서로 ‘짝’으로 보게 했다.

17. <교회 건물>도 어떤 곳은 두 개를 건축하여 서로 개성 있게 존재하되 ‘조화’를 이루게 했다. 어떤 곳은 하나의 건물에 모양을 달리하여 원형과 네모진 형태로 짓기도 했다. 또 어떤 곳은 아예 하나의 형상으로 짓고 콤비로 존재하게 했다.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서로 ‘짝’을 이뤄 존재하게 하셨다. <사람>도 그러하다.

18. <연회장 폭포>는 ‘세 가지’로 ‘짝’을 이뤄서 폭포수가 흐르게 구상했다. 한 줄기로도 내려오고, 두 줄기로도 내려오고, 한 줄기가 넓게 퍼져 내려오기도 한다. 연회장에서는 카페같이 이야기해야 되니 조용히 흐르게도 하고, 어느 때는 장마철에 비 내리듯 쏟아져 내려오게도 했다.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흐르게 구상했다.

19. <호수 옆 폭포>는 웅장하게 내려온다. 곧 ‘하나님의 웅장함을 상징하는 폭포’다. 그러면서 형상을 갖춘 ‘형상 폭포’다.

20. 하나님이 모두 이같이 창조하셨다.

21. 하나님은 모두 극치의 스릴을 느끼게 창조해 놓으셨으니, 행하면서 느끼고 기쁨과 희망을 누리라.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눈을 뜨면서 “자기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쪽’으로는 좋아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는 좋아하게 된다.” 함이 일순간 깨달아졌다.

2. <이성 사랑>만이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랑’이 있다.

3. <돌>이 있다 하자. 돌은 ‘형상’이 있어야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형상’이 없어도 ‘색깔’이 희면 그쪽으로 사랑을 받게 된다.

4. <세상의 각종 만물이나 존재물>도 ‘하나’로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가령 <먹는 것>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음식’은 사람들이 먹어 주니 그로 인해 사랑을 받지만, 그 외에 먹지 못하는 집이나 보석이나 돌이나 나무 등 각종 존재물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먹지 못하는 만물이나 존재물들도 ‘그 존재대로’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기쁨을 누리며 좋아한다. <각종 만물과 존재물>도 ‘그 존재대로’ 좋아해 주니 100% 사랑을 받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사랑>도 ‘자기 존재대로’ 각종으로 사랑을 받는다. 고로 늘 자기를 선하고 깨끗하게 귀히 존재시켜라. 그러면 ‘자기 존재대로’ 하나님과 주와 사랑하며 희락을 느끼며 좋아 산다.

5. <이성의 사랑>은 많은 사랑 중에 그 센터 ‘하나’다.

6.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으로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7.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마치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해 주면서 각종 다른 면으로도 도와주고 귀히 여기고 함께해 주고 좋아해 주는 것과 같다. 다만 지금은 신부 시대이니, ‘휴거된 영’만 그러한 사랑을 받는다.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차원의 사랑은 못 받고, 그 시대 차원대로 ‘종급 사랑’과 ‘자녀급 사랑’을 받았다.

8. 결혼한 여자는 남자로부터 ‘상대적 사랑’도 받고 다른 면으로도 각종으로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한 혈통인 형제나 부모로부터는 ‘상대적 사랑’은 받을 수 없고, ‘그 주관권의 혈통적 사랑’을 받는다.

9. 삼위의 ‘상대적 사랑’을 받으려면,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며 살다가 그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휴거돼야 한다. 그러면 육으로도 영으로도 ‘삼위의 신적 사랑’을 받는다.

10. 어떤 자들은 “하나님은 남성 신이고,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상대적인 사랑을 받느냐?”라고 한다. <인간의 뇌>는

자기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마치 남녀가 사랑할 때와 같이 뇌신경이 흥분되어 엔도르핀이 솟아나게 된다. 남녀가 사랑할 때 기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으로만 사랑해도 흥분되고 기쁘다. 그 기쁨과 사랑은 이성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이상적이고, 엔도르핀이 폭발하듯 사랑이 폭발하여 영으로도 천국까지 지속된다.하나님도 주도 이 같은 사랑으로 신부 시대의 사랑 역사를 이루신다.

11. 전도하기, 관리하기, 기도하기, 말씀 전하기, 각종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등 ‘하나님과 주 사랑’에 기쁨 흥분되면, 마치 사랑하는 자와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것과 같다. 사랑의 관계는 성적으로만 흥분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마음과 생각에서 늘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사랑의 기쁨과 흥분이 연속된다. 그리고 육으로도 사랑의 삶을 살고, 영으로도 천국까지 그 사랑이 연속된다. 남녀의 이성 사랑은 순간이다. 고로 호기심으로 인해 ‘이성의 함정’에 빠져서 죄의 고통을 겪지 말아라.

12.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머리 삼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사는 자>는 ‘위대한 사랑, 기쁨과 사랑이 천국 높은 곳까지 지속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는 자’다. 이상적인 삶을 사는 자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벗어나면 ‘죄’가 된다.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고 대화하며 살아라. 안 하면, 지극히 육적이며 인본적인 자다. 안 믿는 자들의 사고나 행위를 하는 자다.

14. 사람은 누구든지 뇌의 생각에서 수만 가지로 사랑의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고로 ‘이성 사랑’ 한 가지만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에 속해서 땅에서 육으로도 수백 가지로 사랑하고, 영적으로는 ‘휴거’를 이뤄서 지구 창조 이래 더 이상 없는 크고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누린다. <이성 사랑> 가지고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느냐.<이성 사랑> 가지고 ‘성약역사’를 펴고 ‘이상세계’를 이뤘느냐.이성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이룬 것이다. 모두 하나님과 주 사랑이 차고 넘치게 살아라.

15. <이성 사랑에만 속한 자>는 하나님과 수천, 수만 가지로 사랑하는 것도 모르고, 그 차원에 오르지 못해서 그리 산다. 육에 속한 자라 그러하다.

16. 어떤 자는 이성 사랑에만 속해서 하루, 한 달, 일 년, 십 년씩 이성의 사랑 관계만 하고 살았다. 또 어떤 자는 이성 사랑과 상관없이 매일 생명을 전도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 속해 살았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성에 빠진 자>는 그 행위대로 ‘사망의 영’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해 산 자>는 휴거되어 ‘영원한 사랑 세계, 천국 황금성’을 차지했다.

17. <이성에 속해 산 자들>은 ‘이성’을 껴안고 좋아하며 봄날의 나비같이 산다. 고로 삼위를 차지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그들을 비웃고, 정상을 떠나 사는 삶이니 무시하고 살았다. 결국 꽃이 떨어지니 봄날의 나비가 떠나듯 그들의 세상은 그것으로 끝났다. 오직 삼위를 껴안고 사랑하며 산 자들만 ‘삼위의 신부’가 되어 ‘천국 황금성’을 차지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궁’에서 살아간다.

18. 선생이 20대 때 앞산에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다가 동네 친구들이 결혼해서 쌍쌍이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인생은 자기가 산 대로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이 뻔, 뻔, 뻔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닫는다. 두 눈이 어둡고 퇴락하여 그러하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영원한 것은 꽃도 아니요, 나무에 열리는 열매도 아니다. 오직 ‘영원한 영’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땅에서 육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고 육의 삶이 끝나면, 영으로 연속되어 살아간다.” 하셨다. 고로 주는 이미 이것을 깨닫고 가르쳤으나, 아직도 육에 속해서 육으로 기울어져 살고 있다. 그러니 미래의 희망이 희박하다.

19. 이성에 빠진 자는 이성의 사랑을 얻으나, 그것으로 인생을 존재시키지는 못한다.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제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그 육도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된다.

20.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성장해서 결혼하면, 때가 되어 육에 속한 것이 꽃피고 열매 맺듯 한다.

21. 아담과 하와는 성장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 육으로도 영으로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다.

22.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배우고 행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기쁘고 육도 영도 잘된다.

23. <남녀의 이성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도 육이 죽으면 끝나고, 삼위와 주의 사랑은 육으로 살면서도 누리고 영으로도 영원히 연속된다.

24. <이성>은 ‘이 세상 것’이다.

<2017년 8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제대로 하는 데만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2. 제대로 하는 데만 얻을 것이 가장 많이 갖춰져 있다.

3. <제대로 하는 것>이 ‘작품’이다.

4. 인생도 제대로 사는 자가 ‘대(大)결작 인생’을 사는 자다.

5. 매일 제대로 사는 것에 도전해라.

6. 이름 있는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에 도전하는 일보다 더 유익이 되고 실속 있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영원한 천국 황금성에 가기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매일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도 매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온전하게 사는 삶’에 도전하는 자를 쳐다보시며, 이런 자를 크게 보신다.

7. 생각해 보면 하찮은 일인데 거의 못 한다. 힘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것도 아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못 한다. <자기 삶의 코스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다. 그런데 못 하니, 애간장이 탄다. 왜 그럴까?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몰라서 목숨 걸고 안 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고 보면 ‘천국이나, 지옥이나’하는 인생길을 좌우하는 귀하고도 중한 일들이다.

8. 제대로 하면, 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기가 다 얻게 된다. 또한 하나님이 안 주셔도 기본적으로 ‘자기 행위’로 인해 얻을 것을 얻게 된다.

9. 제대로 하면, 성취감이나 기쁨, 쾌감, 흥분 등이 각종으로 온다. 이는 <의의 존재>가 ‘작품’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하루>를 제대로 했으면, ‘하루 대(大)결작’이 완성된다. <인생>을 제대로 살았으면, ‘인생 대(大)결작’이 완성된다.

10. 한 번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기술과 경험을 얻게 된다.

11. <육>이 행하여 그 행위대로 ‘혼’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어 영원한 황금성 천국을 얻는다.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법>은 ‘행하고 말하면 바로 통하는 법’이다.

13. 세상 만물도 사람이 행하면, ‘행한 대로’ 바로 반응을 보인다. 가령 콘센트에 전기 코드를 꽂으면, 코드를 꽂은 그 행위대로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거나 몸이 행하면, 그 생각과 행위대로 반응이 바로 보인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향한 것도 ‘자기가 행하는 대로’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바로 반응이

보인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말한 것을 행하고서 100% 행했다고 이야기해 보아라. 그러면 삼위도 주도 “잘했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또 할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 고로 금방 대화하며 통한다.

16. 온 세상 만물도 ‘행하는 대로, 대하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글>은 쓰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고로 쓰는 행위를 하면, ‘글’이 되어 반응을 보인다. <돌>은 쌓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고로 말 못 하는 돌덩이라도 쌓아 놓으면, 쌓는 행위대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돌 조경’이 되어 반응을 보인다. <음식>도 먹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고로 먹으면, 몸에서 소화시키고 영양분이 되어 몸을 움직이게 한다.<포도나무>도 퇴비해 주면, 바로 퇴비를 빨아먹고 잎이 싱싱해지고 포도 열매를 맺는다. 행하는 대로 응답하며 반응을 보인다. 이같이 <몸>도 행하는 대로 즉시 응답하며 반응을 보인다. <반응>은 ‘응답’이다.

17. <만물과의 대화>는 자기가 ‘만물의 입장’이 돼서 ‘그 느낌’을 말할 때 대화가 된다. 만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만물의 입장을 알고 자기가 ‘통역’하는 것이 ‘만물과의 대화’다.가령 자기가 만물에게 어떤 것을 해 주면, ‘만물이 느끼는 것’을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듯 자기가 ‘표현’해 주면 된다. 그러면 만물과 일문일답이 된다.

18. 만물은 만물대로 통하고, 동물은 동물대로 통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통한다.

19. 자기가 만물을 대해 주고, 그것을 한 사람으로 보고 만물이 느끼는 것을 표현해 주며 대화한다.

20. 특히 동물은 서로 의사소통을 잘한다. 사람이 못 알아들을 뿐이다. 자기가 그 입장이 돼서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표현해 주면 알아듣고 통한다.

21. 동물들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의 행위’를 많이 보고 눈치를 많이 본다. 고로 사람이 때리면 싫어하고,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편하게 해 주면 마음 놓고 자기를 맡긴다. 또 극적으로 잘 대해 주면 극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이 단계에서 동물에게 말을 하면 그 마음과 느낌이 오고, 아예 대화를 가르치면 서로 통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 이것이 ‘동물 언어’이며 ‘동물과 대화’하는 것이다. 어느 때는 처음 보는 새와도 영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이같이 ‘동물과의 대화’도 배우면 알아듣고 대화하게 된다. 사람도 자기가 대해 준 대로 상대의 마음과 느낌이 오고, 그것으로 서로 이야기하며 대화하게 된다.

2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만물을 시켜 계시하시고 대화도 하게 하신다.

23. <나무>와도 대화할 수 있다. 가령 사람이 목마를 때 물을 주면 좋아하고 고마워하듯, 나무에게도 물을 주면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것을 자기가 느끼고 나무와 대화하면 나무가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 느낌을 깨닫고 나무를 대변하여 통역해 주면서 마음과 심정으로 통할 때 대화가 된다. <만물의 반응>은 ‘자기 생각과 마음의 기준’대로 느껴진다.

24.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만물로 같이 대화해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만물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말 못 하는 만물을 다스리며 말해 주고 계시하니, 부지런히 살피고 받을 것을 얻고 써라. 만물도 애인같이 대해 주고 사는 것이다.” 하셨다.

25. 하나님은 인간이 제대로 하기만 하면, 만물과도 통할 수 있게 창조해 놓으셨다.

26. 만물들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잘해 주고 사랑도 해 주어라. 그러면 그 만물로부터 자기 마음에 ‘느낌’이 오는데, 그 느낌이 ‘만물의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대화하는 것이 ‘만물과의 대화’다.

27. 어떤 사람을 잘 대해 주고 좋아해 줬을 때 오는 느낌은 ‘그 사람의 말’이다. 그 말을 듣고 대화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28. 자기 식으로 느끼고, 자기 인식대로 생각하면 제대로 안 맞다.

29. 자기를 먼저 온전히 만들어야 '상대의 것'을 제대로 느끼고 받는다.

30. 자기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먼저 제대로 만들어 놓아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로부터 오는 말이나 감동을 제대로 받게 된다.

31. 자기 몸을 꼬집으면, 그 부분의 지체가 반응을 보인다. 사람처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알고 통하게 된다. 가령 "좋아서 꼬집냐?", 혹은 "할 일 없게 왜 꼬집어?", 혹은 "무슨 일 있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냐?", 혹은 "왜 미워서 그래? 말로 해.", 혹은 "성격 못 고치네. 습관성이야.", 혹은 "세포가 얼마나 늙었는지 감각 테스트 하나?" 하며 여러 가지로 반응을 보인다. 정확히 풀어서, 이 중에 맞는 것으로 대화해야 된다. 정확히 반응을 풀고 대화하는 것은 '자기 실력대로, 생각과 지혜의 차원대로' 하게 된다. 사람과의 대화도 그러하다.

32. <만물 언어 초보자>는 '좋다, 싫다' 혹은 '기쁘다, 나쁘다' 등 두 가지로만 통하고, <만물 언어 전문가>가 되면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통한다.

33. 하나님과도 자기 실력과 차원대로 대화가 이뤄진다. 차원이 낮으면 '좋다, 싫다'로 간단하게 대화가 이뤄지고, 차원이 높으면 구체적으로 통하고 하나님의 '고유 언어'로도 통하고 깨달아진다.

34. 자기가 온전할수록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느껴져 통하게 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8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도 만물도 대하면서 통할 줄 알아야 재미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된다. 또 위험할 때 피하게도 해 주고 구출해 주기도 한다.

2. 월명동 자연성전을 건축할 때다. 멋있는 돌을 세워 주고 돌에게 "너 진짜 끝내주는 위치에 잘 보이게 세웠으니, 사람들이 보면서 멋지다고 할 것이다." 하니 돌은 정말 고마운데 좀 불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그러냐고 하니, 돌은 "내가 생각보다 몸짱이라 무거워. 그런데 기초가 약해서 앉은 의자가 점점 내려가는 느낌이야." 했다. 돌을 마치 한 사람으로 보고 '그 말'을 통역해서 즉시 돌을 다시 들게 했다. 그리고 돌이 좀 낮게 보이더라도 깊이 파서 안전하게 세우자 하고 밑을 더 깊이 팠다. 한 시간 이상 작업을 해서 40cm 이상 더 깊이 파고 바위를 세웠다. 이제 안전해 보이고, 끄떡없겠다 하고 돌에게 어떠냐고 물어보니, "최고야! 아까 안 물어봤으면 나 말도 못 하고 이 높은 데서 넘어져 죽겠다 했어. 나 이제 넘어지고 싶어도 안 넘어져. 튼튼해." 했다. 원래 이 돌은 기도동산 기슭에 세운 돌이었다. 어느 날 이 돌 앞에 가서 "여기가 낮은 곳이라도 잘 보이니 좋지 않냐?" 하고 물어보니, 자기보다 작은 돌도 다 야심작으로 올라가고 높은 데 올라가는데, 자기는 큰 작품인데도 못 올라가서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도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하나님은 "이 자리가 아니다. 다시 쌓아야 돼. 이 돌은 승리와 성공을 의미한 V자 돌이니 앞산 중앙 맨 위에 올려라." 말씀하셨다. 고로 이 돌을 사 온 용석 목사님과 의논하고 앞산 중앙 상단에 올렸다. 너무 무거워서 기적적으로 올렸다. 오석이며, 멋진 돌이다. 이같이 다 사연이 있다.

3. 하나님과 성령님께 정말 좋은 돌을 갖다 놓겠다고 정성을 드리고 간구해야 좋은 돌을 만나게 해 주시고, 제 위치에 세우게도 된다. 돌을 사 오는 주인이 좋은 돌을 사다 하나님 성전에 세우겠다고 하며 아주 좋은 돌을 만나게 해 달라고, 험하게 사게 해 달라고 기도하니, 결국 좋은 돌을 험하게 사 와서 세우게 됐다. 지금은 그때 가격의 10배를 줘도 그런 돌이 없다.

4. 그냥 보기에는 보통 돌 같아도 사연을 알고 보면 왜 그 위치에 놓았는지 안다. 월명동의 나무와 돌들은 모두 사연이 깊고 깊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자연성전을 건축했기에 그러하다.

5. 한번은 월명동 지형 사진을 보는데 볼펜보다도 작게 보이는 소나무가 있었다. 그 소나무가 "나, 곧 죽는다. 묘로 뿌

리가 뻗어 들어갔다고 묘 주인이 톱으로 베어 버린다고 했다. 며칠 전에 보고 갔어.” 하기에, 그 즉시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이 소나무에 보호수라고 써 붙이고, 베어 버리려고 하면 못 베도록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러고서 우리 소나무니 캐 오라고 했다. 며칠 후에 묘 주인이 다시 와서, 우리가 캐 가겠다고 하고 소나무를 캐 왔다. 그 소나무는 하나님도 성자도 기른 소나무였다. 캐서 운동장 끝에 큰바위얼굴바위 옆에 심었다. 지금은 월명동 천연기념물 작품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자가 하시는 말을 듣고, ‘만물의 소리’를 들으면, 만물도 구원하고 그로 인해 얻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게 된다. 고로 ‘만물 대화’를 배우라고 이 소나무의 사연을 말 씀해 준다.

6. 돌을 사러 가서 성자에게 ‘이 중에서 주인이 가장 귀히 보는 돌’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시고, 만물도 소리를 내서 가르쳐 준다. 그리고 얼마 정도 주면 되는지 성자와 의논해서 산다. 어떤 돌을 살 때는 즉시 계약하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500만 원 계약금을 줘서 계약하고 “너 이제 우리 집에 시집온다.” 하고 돌에게 이야기했다. 그때 돌이 “잔금도 줘야 돼요. 돌은 임자 만나면 돈 생각 안 하고 비싸게 주고 사 가요. 어떤 돌은 계약했어도 더 준다고 한 사람에게 팔았어요.” 했다. 내가 계약금을 많이 줘서 괜찮다고 하니, 계약을 어기면 배로 물어 주더라도 그보다 더 비싸게 사 가는 자들이 있다고 했다. 고로 일주일 후에 가서 중도금 500만 원을 또 주고 누가 못 가져가게 아예 그 돌에 ‘오직 주 하나님’ 글씨를 파 버렸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그 돌을 월명동으로 가져왔다. 이 돌은 오석이며, 품질이 최고 좋다. 매끈하고 뒤쪽에는 확돌같이 폭 파였다. 자세히 보면 여자같이 생기기도 했고, 전체 형상이 금붕어 같기도 하다. 이 돌은 20년 전에 사 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돌을 판 지역에서 그런 돌이 안 나온다고 했다. 그 주인도 자기가 23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팔았었는데, 그때 뭐가 썩어서 1500만 원에 팔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날 이 돌 옆에 정말 욕심나는 ‘미스코리아 같은 돌’이 있었는데, 주인은 회사가 없어져도 그 돌은 안 판다고 했다. 회사의 표상, 금 두꺼비 형상으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돌이라고 안 판다고 하기에, 속으로 ‘그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내 작품이라고 하신다.’ 하고 세 군데에 진하게 침을 찍어 놔다. 그러면서 돌에게 “너도 우리 집에 온다. 예정이다. 옆의 검은 돌과 한 쌍 같다. 하나님의 뜻이니 걱정 마.” 하고 이야기하니, 그 돌이 킁킁거리며 좋아하고 감격해했다. 결국 그 후 1997년에 그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에 돌들을 판다고 하여 그 돌을 싼값에 사 오게 됐다. 그때 이 코끼리바위(구, 두꺼비바위)와 성령바위까지 16개의 돌들을 사 왔다. 이 돌은 넓이 4m, 길이 6m로 가장 넓적하고 좋은 돌이다. 이같이 만물과 대화하지 않고서는 ‘만물의 보화’를 찾지 못한다. 사람과도 대화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보화’를 찾지 못한다. 고로 모두 대화하여 화목하여라.

7. 매일 ‘하나님과 대화’다. ‘성령과 대화’다. ‘주와 대화’다.

8.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물로 우리와 대화하시면, 그 존재물을 통해 상황을 전달하시니 정신과 생각을 집중해서 보면 느껴지고 깨닫게 된다.

9. 만물과 대화하면, 길을 가다가도 그 존재물이 느껴져 온다. 한번은 나무가 “나 월명동에 가서 ‘월명동 작품’ 돼서 살고 싶어. 나에게 좀 관심 가지고 키워 봐.” 해서 캐다 심었다. 지금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월명동 작품이 되었다.

10. 사람이든 만물이든 형상이 없는 존재물은 없다.

11. 형상을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귀히 쓰시는 창조주께 ‘형상을 만드신 사연’을 나누며 대화하여라.

12. 일생 동안 보면서도 모르는 자는 모른다.

13. 수백만 종(種)의 만물들을 그냥 보기만 하지, 특이한 형상에 관심이 없으니 모른다.

14. 만물들을 자세히 보면, 특이한 형상이 많다.

15. <생물>은 자라면서 그 존재대로 특이하게 자라기도 하고, 돌과 같은 <무생물>은 비바람이나 파도에 깎여서 자연스럽게 특이한 형상을 갖추기도 한다.

16. <자기 마음과 생각의 형상>도, <몸의 형상>도 모두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놓으면, 월명동을 개발한 것과 같이 평생토록 보고 즐기고 기뻐하게 된다.

17. <자기 몸>도 형상이 있다. 운동해서 완전하게 만들면 ‘최고 건강 작품’이다.

18. 자기 몸을 가지고 만들 것이 많다. 곧 ‘자기 정신, 생각, 행위’들이다.

19. 완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차원에서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20. <자기 형상의 작품>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도, 자기에게도, 다른 자들에게도 눈에 띄고 모두 보고 좋아하는 형상으로 만들기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어떤 것을 구했어도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안 주시고 다른 자에게 주시기도 한다. 그리고 구한 자에게 준 것으로 따지신다. 고로 “왜 안 주시지?” 하지 말고, 그것을 받은 자에게 자기가 가서 얻고 써야 된다.

2. <의학>도 그러하다. 자기가 아프다고 고쳐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1년, 3년이 지나도 안 고쳐졌다. 하나님은 이미 의사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줘서 그들을 통해 고치고 치료하게 하셨다. 그리고 구한 자에게 준 것으로 따지신다. 고로 “왜 안 고쳐 주시지?” 하지 말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병을 치료해야 된다.

3. 하나님은 ‘그 사명’을 준 자를 통해서 도우신다. 고로 <의학>은 ‘의학의 사명’을 준 자를 통해 치료를 도우신다.

4. 특별한 때에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며 직접 치료하기도 하신다.

5. 자기가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

6. 사람들은 흔히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일을 하니 안 아프겠지.” 한다. 오히려 사명만 하다 보니 몸을 더 써서 더 아프다.

7. 선생도 한때는 수만 번씩 기도해도 병을 안 고쳐 준다고 하며 하나님께 고했다. 3년 동안 기도해도 안 나아서 후에 깨달았다. ‘하나님께 성령께 기도해도 그것으로 병을 고쳐 주시지는 않는구나.’ 했다. 이를 하나님께 고하니, 하나님은 “이제야 깨달았느냐.”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는 병에 안 걸리겠지.’ 하고 생각하며 기도만 한다. 그러다 죽기도 한다. 이미 병을 고치는 방법은 그동안 수백 번 이야기해 줬다. 자기가 100% 건강관리 하고, 운동하면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하고, 수술해야 할 것은 수술하고, 약 먹을 것은 약을 먹고, 장기간 치료해야 할 것은 음식으로도 관리하면서 치료하는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도 ‘의학’을 통해 치료해 주시니 쉽다. 고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병이 안 걸리겠지. 늘 병을 두고 기도하니 고쳐 주시겠지.’ 하지 말아라. 자기에게 암이 와 있어도 하나님은 “너, 암이다.” 하지 않으신다. 그동안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늘 건강검진도 하고, 아픈 자들은 병원에 가서 의학으로도 치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이미 1년 전에 받았다. 하나님은 이를 모두에게 전해 주라고 하시어 전해 준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치유의 사명자’를 통해 고쳐 주시기도 하고, 혹은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하며 그 치유의 능력만 믿지 말고, 병원에 가서 완전하게 병을 치료해라. 병원에 가서 ‘치유의 사명자’를 통해 치료하고, 또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판단법’이다.

9. 하나님은 아픈 자들을 보시고, 의학으로 고치신다. 의학의 손길이 안 닿는 데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기도 하신다.

10.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학도 동원하고, 각종 약도 먹으며 치료하는 것이다. 이같이 두 가지로 하면 ‘두 겹 줄’이 돼서 하기 쉽다.

11. <의학>도 절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의학의 사명자들’에게 역사하시어 온 세상 병원도 운영하신다. 고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니 쉽다.
12. 자기 지식과 이론은 실제와 다르니,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확인하여라.
13. <신앙의 의학>이 필요하면, 마치 병원에서 병을 고치듯이 ‘신앙의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하면 된다. 그러면 신앙의 불구자, 신앙의 소경들이 치료되고 고쳐진다.
14. 하나님께 막연하게 병을 맡기고 있다가 죽은 자들이 지구 세상에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섭리사에도 그런 자들이 많다.
15. 기도만으로 병이 낫는 것은 기적이다. 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봐야 된다.
16. 어떤 자는 3만 번 기도해도 안 나왔다. 결국 병원에 가서 의학으로 치료하고 나왔다.
17. 사도 바울은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눈에 난 안질(眼疾)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안 나왔다. 그러니 창피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느냐. 아마 의학으로 했으면 나왔을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후12:7).” 하고 성경에 기록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같이 말씀한 것은 없다. 교만함이 ‘병’을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8. 매일 기도하는 자들이나 섭리인들이나 모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해도 병은 안 낫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병은 하나님이 고쳐 주시겠지.’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라.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눈으로 확실히 보고 치료하니 천 분의 일, 만 분의 일의 확률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
19. <월명동 약수>를 먹어도 다 낫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좋은 약수를 먹으니 건강이 좋아지는 정도다. 병이 낫는 것은 ‘기적’과 같아서, 마치 손을 안 대고 발에 난 잡초를 뽑는 격과 같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하신다. 그리고 자기도 ‘손과 발’이 있으니, 손과 발을 써서 잡초를 뽑으면 금방 뽑힌다. 이것이 곧 ‘의학’을 쓰는 방법이다. 이 말씀대로 실천해라.
20. 성경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이 낫게 된다고 했다. 그러니 다들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고생하면서 그곳까지 올라왔다. 의학으로 치료했으면 거의 나왔을 것이다.
21.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표가 나게 해 주신 것인데, 계속 그리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22. 섭리인들은 자기가 병이 있으면 거의 기도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100% 믿고 기도한다고 한다. 고로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준다. 그런데 의학으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에 ‘백 분의 일, 천 분의 일’ 정도 확률을 보고 기도해 준다. 왜 평소에 의학으로 치료하지 않고, 건강검진도 하지 않고 막연히 사느냐. 병이 낫기를 원하는 자 중에 50%, 70%, 90%만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100% 믿고 기도한다. 그리 믿고 기도해도 백 분의 일, 혹은 천 분의 일의 확률로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건강검진도 미리 하고, 의학도 쓰면서 자기가 ‘실천’해서 쉽게 일어나게 하여라.
23. 어떤 자가 병이 생겨서 초기에 수술하라고 했는데, 기도해서 나으려고 기도만 했다. 그러다 3년이 지나니 혹이 7cm~9cm까지 자랐다. 결국 그제야 수술한다고 했다. 수술하는 것이 무섭고 겁이 나서 그리했다고 했다. 이는 마치 방안에 손가락만 한 실뱀이 사는데 ‘기도해서 없애야지.’ 하다가 1년이 지나니 뱀이 가래떡만 하게 커 버린 것과 같다. 뱀이 있다고 하면, 뱀 잡는 자가 와서 즉시 잡아간다. 그리고 잡아 준 값만 주면 끝난다. 이같이 모두 병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서 뱀을 잡아 없애듯 치료해라.

24. 어떤 자는 TV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암에 걸려서 3~4년 동안 건강관리 하며 산에서 쭉을 뜯어 먹고 살았다고 했다. 그러고서 암이 나았다고 했다. 자기가 지속적으로 자연요법도 쓰면서 건강관리 하고, 의학도 동원하여 치료하니 나은 것이다.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의학도 동원하면 된다. 선생도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병원 가야 된다.” 하고 깨닫고, 병원에 가서 순리대로 치료하라고 말해 준다.

25. <신앙의 병>이 있는 자는 ‘신앙의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해라. 자기 혼자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 악화된다. 혼자 해서는 표가 안 난다. 고로 관리자가 영적으로 치료해 주고, 선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26. 어떤 자는 삼위가 자기 병을 고쳐 주실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안 나았다고 하며 서운함을 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신앙 세계의 병들은 신앙의 의사가 고치고, 육의 병들은 육의 의사가 고치는 것이다.” 하셨다. 선생을 통해 30년, 4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27. 가령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했다 하자. 기도하면, 임시적으로는 기도에 집중하니 뇌 작용에 의해 배고픔이 없어진다. 그러나 기도했어도 ‘실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니 몸에 영양가도 흡수가 안 되고, 계속 배는 고프다. 고로 배가 고파서 기도한 것은,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을 갖다 놓고 먹으면 금방 해결된다.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을 때는 그 여건과 처지가 그러하니, 하나님은 그런 때에 ‘기적’을 보이시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차려 놓은 음식을 먹게 하였다. 육신의 병도, 신앙의 병도 그러하다. ‘실제’ 자기가 건강관리도 하고 병원에 가서 ‘의학’으로도 치료하는 것이다. 신앙의 병은 ‘신앙의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하는 것이다.

28. 매일 건강관리다.

29. 선생은 일찍부터 섭리사에 의사들을 키워서 병원을 차리게 했다. 고로 아프다고 기도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운동하며 건강관리도 하고, 병이 있는 자는 의학으로도 치료하여라. 의학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이며, ‘사고에 문제가 있는 자’다.

30. 목회자들도 사명을 맡고 뛰다 보면 아프다. 고로 쉬고 힘내서 뛰라고, 부목회자들에게 일도 맡기고 설교도 하라고 한 것이다.

31. 특별한 병이 없어도, 힘 빠지면 뛰어도 표가 안 난다. 평소에 늘 건강관리, 신앙 관리를 하여라.

<2017년 9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그렇게 큰 소리도 생각을 안 하면 안 들린다.

2. 계속 생각을 안 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생각을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된다.

3. 신경 쓰여서 머리 아프고 골 아프니, 다른 것을 생각하고 행해야 생각에서 사라지게 된다.

4. <생각>은 ‘사람’과 같다. 가령 한 사람이 눈앞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안 보이고 말을 해도 안 들린다. 이와 같이 <생각>도 다른 데로 자리를 옮겨서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면에서는 죽은 상태와 같아서 생각이 안 난다.

5. <마음과 생각의 병들>이나 <현실에 속한 병들>로부터 떠나기다. 외면하고 다른 일을 행하기다.

6. 환경 옮기기, 전환하기, 다른 생각으로 이동하기다.

7. 잡음이나 잡소리는 아무리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길이 없다.

8.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다시 이용하는데, 잡음이나 잡소리는 활용할 곳도 없다. 고로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고 잇는 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안 들린다.

9. 살면서 악한 말이나 험담도 귀를 막고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고 잇고 살아야 된다.

10. 귀에서 나는 이명 소리는 귀를 막아도 난다. 그런데 생각을 다른 데 집중하고 하다 보면 안 들리게 된다.

11. 고쳐야 빨리하게 되고, 고쳐야 많이 하게 된다.

12. 저마다 '생각과 행위'를 고쳐라. 고치면, 고치는 대로 빨리하게 되고 할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안 고치면, 안 고친 쪽으로 '불의'를 행하게 된다.

13.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느 때는 돕고, 어느 때는 안 돕는 줄 안다. 그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도울 것이 있을 때 도우시고, 나머지는 지켜보시면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 지켜보시다가 도울 일이 있으면 그때는 '돕는 일'을 실행하신다. 이를 깨닫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대화하고 감사하여라. 대화를 안 하는 병어리와 같은 자들은 마치 짓지 않는 개와 같이 취급하신다.

14. <선천적인 병어리>가 아닌 '시대의 병어리들'은 자기가 말을 안 해서 스스로 만든 병어리들이다.

15. 말을 안 해 버릇하면, 뇌가 그리 굳어서 병어리가 말이 안 나오듯 말이 안 나온다. 뇌가 이미 굳었으니, 몸부림쳐 입을 벌리고 말을 했어도 '이렇게 해도 되나?'하며 기이하게 여기고 이상해졌다고 한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병어리니, 자기가 몸부림쳐서 고쳐야 된다.

16.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매일 대화하면, 병어리가 더듬거리다가 점점 말을 하게 되듯 하게 된다.

17.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야기하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대화하고 할 말을 해야 된다.

18. <자기에 관한 것>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병어리가 입을 열고 말을 하듯 '신앙의 병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19. 매미는 길게는 13년씩, 17년씩 오랫동안 땅속에서 굴뚝이로 지내다가 잠깐 한철 동안 세상에 나온다. 세상에 나오면 그 좋은 때에 좋아서 노래해야 되는데, 어떤 매미는 '병어리 매미'가 되어 즐겁지도 않게 입 다물고 산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곤충이냐.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6000년 구원 역사를 펴시다가 지금 '한때' 휴거 역사를 펴시는데, 신부로 휴거된 자들이 삼위와 주와 대화도, 노래도 안 해서 마치 '병어리 매미'가 되듯 하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신령한 대화, 신령한 노래>를 안 하면, '병어리 신부'다.

20. <병어리 신부>를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진정 감사 감격하며 '사랑의 대화'를 하고, 사연을 이야기하며 간구하고, 노래로 영광을 돌리며, 신부로서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병어리 신부'에서 벗어난다. 이 시대 병어리 신부들이 너무 많다.

21. <병어리>와 <병어리가 아닌 자들>이 같이 살아간다. 그런데 병어리는 귀가 멀어서 못 들으니, 다른 자들도 자기와 같은 줄 안다.

22. 하나님이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하신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해야 대답하신다. '행하신 것'을 깨닫고 알아드리니, 그제야 말이 통하고 그것을 통해 대답하시며 대화가 된다.

23. 모두 사랑의 대상이니 기도하고 집중하여 대화하면, 삼위와 주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이 깨달아진다.

24.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연과 표적들’을 기뻐 좋아하며 이야기해 보아라. 진정을 다해 감사 감격하며 이야기해 보아라.
25. <계시를 받는 자들>은 ‘기술과 노하우’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대화하고, 또 행하면서 겪은 것들을 물어보며 대화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가 깊은 것도 말씀해 주신다.
26. 자기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는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삼위와 주와는 대화를 안 하니, 하나님은 “저 참새와 같은 행위를 보아라.” 하신다.
27. <삼위와 주와 늘 대화하는 자>는 ‘황금 입’을 가지고 ‘중천금’이 되어 살아간다.
28. 결혼은 했는데 입 다물고 말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혼자 편하게 산다. 때가 되면, 남편은 떠나서 강 건너 다른 자와 다정히 이야기하며 지나간다. 그때는 병어리 입이 벌어져 탄식 소리도 나오고, 후회 소리도 나오고, 각종 소리가 나온다. 신부는 신부인데 그 차원에서만 살아가게 된다. 다만, 다시 말하고 대화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다시 오신다.
29. 말을 안 하면, 입에 침만 고이고 가래만 올라온다.
30. 말하고 대화하면, 순환이 되니 다 소각된다.
31. 의인을 쫓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의인을 쫓다가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꺾어서 매달려 죽는다.
32. 의인들을 괴롭히고 음모하고 고통을 주는 악한 자들은 의인을 쫓다가 나뭇가지에 두 눈이 박혀 한계를 맞는다. 그 육도 영도 영원한 사망에서 끝나게 된다.
33. 의인들은 쫓겨도, 하나님과 주를 만나 대화하며 ‘이 시대 비밀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부지런히 생명들을 하늘 품에 돌아오게 한다.
34. 의인들을 괴롭히면, 누구든지 쇠꼬챙이가 쫓아다니면서 눈에 박히고 그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고로 의인들을 쫓는 것을 중지하게 한다.
35. 생명들을 해하고 죽이려는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길, “내가 사랑하여 만들고 키운 자들을 죽이려 그리 온갖 무기를 만드느냐. 칼을 쓰는 자는 그 칼이 자기를 쫓아 찢어서 죽고 망하게 한다.” 하셨다.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마음을 절대 비우고 자기 생각을 없애 버리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하여 자기에게 합당하게 행하신다.
2.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우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 주신다.
3.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맡기고 주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맡기면, 그를 통해 행하신다.
4. 삼위와 주께 맡겼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때부터 또 ‘자기 생각의 실천’이 되어 버린다.
5. 삼위와 주께 맡겼으면 자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좋든지 싫든지, 자기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아도 모두 버리고 ‘삼위와 주의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주도 뜻을 이루고, 영원까지 그 뜻이 연결되게 하신다.

6. 삼위와 주께 맡겼으면 ‘쓰게’ 행하시든, ‘달게’ 행하시든 100%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사랑하며 기뻐 따라가야 된다.
7.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 일이나. 그러니 행하는 자가 아주 적다.
8. 자기 생각을 다 비우고 주께도 물어보고, 성령께도 물어보아라.
9. 삼위와 주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비운 자’를 찾아서 ‘그 마음과 생각의 그릇’을 가지고 행하신다.
10. <마음과 생각을 비운 자>는 자기라는 차의 엔진을 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엔진’을 단 자와 같다. 고로 삼위가 그의 마음과 생각의 엔진이 되어 행하신다.
11. <마음과 생각을 비운 자>는 ‘자기중심’을 없앤 자다.
12. <마음과 생각을 비운 자>는 그릇을 깨끗이 씻은 빈 그릇과 같아서 ‘자기의 생각 그릇’에 자기 생각이 일점일획도 없다. 고로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삼위와 주의 생각대로 행하고 맡긴다.
13. 삼위와 주께 맡기면, 바로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도 깨닫고 볼 수 있다.
14. 자기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삼위와 주의 생각대로 행하면,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죄를 안 짓는다.
15. <자기 생각으로 행한 것>이 ‘죄’다.
16. 자기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하나 되어 자기 욕을 쓰고 행하신다.
17.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생각에서 잊으면, 그 순간은 생각이 기능을 못 하는 것과 같아서 생각이 죽어서 살게 된다.
18.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도 생각을 안 하면 금방 잊는다.
19. <영적인 것>에 속한 것일수록 금방 잊게 된다. 안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안 보이니, 금방 생각했던 다기도 잊게 된다.
20. 어떤 것을 생각에서 잊으면 행하지 않게 되니 마치 가뭄 때의 곡식같이 생각이 시들어 가고, 끝내 잊어버리면 마치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죽듯 그 존재의 것이 없어진다.
21. 생각났을 때, 들었을 때, 봤을 때 ‘생각’에서 잊지 말고 잘해라. 다른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 방금 전에 생각했던 것도 뇌에서 잊게 된다. 사람의 ‘뇌의 기능’이 이러하다.
22. 어떤 것은 정말 귀해서 안 잊으려고 손에 써서 들고 다녀도, 다른 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쏠리니 잊게 된다.
23. 어떤 자는 음식을 만들다가 재료가 필요해서 급히 시장에 갔다. 그런데 사야 될 재료를 잊고 다른 것을 보는 데에 정신이 팔려서 시장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보니, 살 것이 다시 생각나서 시장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시장 입구에서 만나야 될 자가 있어서 그와 실컷 이야기했다. 그러다 자기가 왜 시장에 왔는지까지 잊어버리고 ‘내가 여기 왜 나왔지?’하고 다시 집으로 뛰어갔다. 집에 가서 자기가 만들던 음식을 보고 그제야 살 것이 다시 생각났다.<신앙을 하는 자들>도 이러하다.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향한 마음과 생각’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때 다시 생각나서 ‘이제는 꼭 행해야지.’ 하고, 다시 또 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환경에 처해 보고 듣고 살면서 생각에서 잊고 못 행한다. 매일 이러한 인생을 산다.

24.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생각해야 잊지 않게 된다.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 조심하고,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며 행하기다.
2. 목숨이 걸려 있는 것도 생각에서 잊어버리니, 눈에 보이게 손등에 써 붙이고 다녀라. 그것을 누가 볼까 부끄러워서 안 하다가 억울하게 해를 받고, 불구자도 되고, 목숨도 잃는다.
3. 모르는 것같이 억울한 것도 없다.
4. 아는데도 ‘생각’에서 잊은 것같이 어이없는 것도 없다.
5. 성경에서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계1:19)” 하였다. 생각났을 때 기록하여 눈으로 보라고 했어도, 그 말씀대로 안 하고 불순종해서 해를 받는 것이다.
6.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님이 주신 말씀, 성자가 주신 말씀을 9년간 기록해서 안 잊고 있다. 기록하지 않았으면, 만 분의 일도 기억 못 했다.
7. <기록>은 ‘뇌에 저장한 것’보다 백 배나 보장된다.
8. <뇌>는 기억했다가도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보면, 순간 기억이 없어진다.
9. <기록한 것>은 ‘글’이나 ‘녹음된 말’을 보고 들으면 생각나고 기억난다.
10. <기록>은 십만 명, 백만 명이 기억한 것보다 낫다. 백만 명이 기억 했어도 결국 뇌의 기능은 같아서, 시간이 가면 일순간에 다 잊는다.그러나 <기록>은 ‘천 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
11. 뇌가 기억했던 것을 어떻게 잊는지 연구해 보니, 마치 스르르 잠이 들듯 점차 희미해지다 잊게 되었다.
12. 어떤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지체 중에 ‘손’과 연관된 것이라서 손만 보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가니 똑같이 잊었다. 손을 봐도 안 떠올랐다.
13. 어느 때는 기억이 생생해서 ‘입에 넣은 밥을 마저 넘기고 글로 써야지.’ 하고 여유 부리다가 순간 밥을 꿀꺽 넘길 때 기억이 없어졌다.내 머리를 때리면서 “아니, 그렇게도 잘 잊냐?” 하니, 내 혼이 “뇌 기능에 대해 설명해 줄 테니 들어 봐.” 하면서 설명해 주었다.내 혼이 비유를 들어 말하길, “밤하늘에 유성이 지나가듯, 어떤 것은 시간이 되면 백 분의 일 초도 더 못 견디고 사라진다. 또 어떤 것은 번개가 순간 칠 때 보이듯 순간 기억나고 사라진다.”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길, “보면 순간 사진을 찍듯 기록하고, 생각나면 순간 기록해야 된다. 아무리 생생하게 기억나도 그것과는 상관 없이 뇌에 스쳐 지나가면 끝난다.”라고 했다.
14. 기억을 잘하려고 이름을 지어 줘어도 생각에서 잊었다. ‘별, 달, 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잊는다. 또는 특이하게 이름을 지었어도, 뇌에 아예 중독되게 매시간마다 외우고 해야 안 잊어진다. <기억>은 마치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만 보이듯, ‘생각할 때’만 기억한다.
15. ‘나는 그리 편지 많이 했으니 선생님이 안 잊었겠지.’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존재해야 된다. 존재할 때만 기억이 존재한다.
16. 사람이 40대가 넘으면 기억이 확 감소된다.

17.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께 기도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삼위와 일체 시켜라. 하나님은 안 잊으시니, 일체 되면 기억이 그대로 난다.
18.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자기가 잊은 것을 기억나게 해 달라고 하면, '생각'을 주신다. 하지만 먼저는 자기가 기억할 것은 꼭 '기록'하고 늘 보아라. 보면, 즉시 기억난다.
19. <기록>은 '신'이 되게 한다.
20. 생각났을 때 해 버려라.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21. 이것만은 절대 안 잊는다고 말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잊었다. 이것이 '인간의 뇌의 한계'다.
22. 어떤 자는 운전하고 가면서 "졸면 죽고, 한눈팔면 죽고, 딴생각하면 죽는다." 하고 큰소리치고 떠났다. 그러고서 10분 뒤에 사고가 나서 죽었다. 자기가 큰소리치며 한 말을 잊어서다.
23. 잊으면 죽는다. 고로 기록해서 보고, 옆에 있는 자에게도 잊지 말자고 하며 계속 반복해서 외쳐라.
24. <섭리사를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지난날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사연'을 잊은 것이다.
25. 어떤 자는 자기 친구들이 바다에서 복어를 잡았기에, "그 생선은 알을 안 빼고 먹으면 죽는다. 복어 알은 독약이다." 하고 가르쳐 주면서 절대 잊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친구들은 몰라서 그냥 먹을 뻔했는데 가르쳐 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러고서 자기는 다음 날 다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하고 떠났다. 다음 날이 돼서 어제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았다. 가서 확인해 보니, 다 죽어 있었다. 알고 보니 잡은 복어를 요리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해 준 말을 안 잊고 있다가, 요리를 하면서 잊고 그냥 먹은 것이다. 아예 그때 바로 복어 알을 빼서 줘야 했는데 자기도 그리하는 것을 잊었다고 하며 안타까워했다. 이같이 '생각'으로 육의 운명도, 영의 영원한 운명도 좌우한다. 고로 <뇌 기억>을 믿지 말아라. <뇌 기억>보다 <펜 기억>이 완벽하다.
26. 기억에 신경 쓰지 않으면, 기록해 놓은 것도 잊고 안 본다.
27.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깨달아라. 고로 후대를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낸 자의 육'을 통해 수천 자루의 볼펜으로 글을 써서 기록하게 하였다.
28. <만들어 놓고 보게 하여 그들이 잊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얼마나 큰 역사인지 깨달아라.
29. <글>로도 기록해 놓고, <나무와 돌>로도 남기고 가니 모두 그것을 보며 이야기하여라. 그래야 안 잊는다.
30. <성경의 기록>이 없으면 해 놓았어도 그때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후대에 가서 다른 자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면 그가 주인공이 된다. 고로 해 놓고 기록해야 된다.
31.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외친 말씀과 설교를 책으로, 영상으로도 모두 기록하여라.
32. 최고로 귀한 '성약의 성경'에 '역사'를 기록하여라.

<2017년 9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죽으면, '육신'이 죽은 것과 같다.
2. <죽은 생각>을 못 살리면, '영'이 영원히 죽은 세계로 간다.

3. <삼위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이 '생각이 죽은 것'이다.
4. <3.16> 때도 제대로 하니, 제대로 되었다.
5.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되었다. 만사가 그러하다.
6. 매일 제대로 하여라.
7. <꿈>은 '생시와 연결된 계시'다.
8. <꿈>은 생시와 연결되어 있으니, 생시에 '행해야' 유익이다.
9. 꿈에서만 겪고 끝나면, 허무하고 얻는 것이 없어서 유익이 없다.<육>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생시에 '행해야' 얻고 유익이다.
10. 꿈에서만 행하면, 허무하다. <꿈>은 '꿈'으로 사라진다.
11. <꿈>이 '생시'로 연결되어, 좋거나 나쁘게 이루어진다.
12. 꿈에서 아쉽게 끝난 것은 생시에도 아쉽게 끝난다.
13. <생시>에서 제대로 행하고 잘하면, <꿈>에서도 잘되고 좋은 꿈을 꾸게 된다. 또 좋은 꿈을 꾸게 되니 생시에서도 또 좋게 이루어진다.
14. 아예 '태양'이 돼야 '어둠'과 상관없게 되어 마음이 놓이듯이, 태양 같은 삼위일체와 하나 돼야 마음이 놓인다.
15. 아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짐승'이 안 된다고 보장되듯이, 아예 '하늘에 속한 영'이 되게 완전하게 해 버려야 마음이 놓인다.
16. <생시>에서 이겨야 '꿈'에서도 이기고, <꿈>에서 이겨야 '생시'에서도 이긴다.
17. <어떤 물건>을 아예 '자기 것'으로 사 놔야 마음이 놓이듯이, <시간>도 아예 '자기 것'으로 써 버려야 마음이 놓인다. '해 버린 것'은 마음이 놓인다.
18. <시간>은 자기에게 마치 '사랑의 대상'과 같다.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쓴 자는 '사랑의 대상'을 아예 '자기 것'으로 만든 것과 같다.
19. <시간>은 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애인'으로 비유하여 보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시간'으로 비유하여 보인다.
20. <입>으로는 시간을 안 뺏겨도 '실체'는 뺏긴다. 곧, '말'만 하면 시간을 뺏긴다는 뜻이다. '행해야' 안 뺏긴다. 이론과 실체는 다르다.
21. <시간의 싸움>이다. <시간>을 잡으면 자기와도, 겨루는 자와도, 사탄과도 싸워 이기고 승리한다.
22. 행할 일도, 사랑도 충분히 행해야 '순리'로 행해진다.
23.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모두 충분히 행해야 '순리'로 행해진다.

24. <도전하는 자>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행하는 자다.생각을 일도(一到) 하고 목표를 향해 몸도 마음도 행하는 자다.
25. <꿈속에서 찾은 것>은 생시에 ‘실체’로 없다.가령 꿈에서 나무를 얻었다 하자. 그것을 캐서 육의 세계로 나오면 사라진다. 고로 꿈에서 본 것을 생시에 ‘행해서’ 찾아야 한다.
26. <본체>는 숨기고 ‘비유’로 보여 게시한다. 고로 비유만 보고 소홀히 하면 안 된다.
27. <본체>는 안 보이고 ‘비유’로 그 상황과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28. <성령>은 숨기고 ‘한 여자’를 보이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29. <꿈>에도 ‘육의 세계와 같은 이치’로 존재한다.
30. 육계에서 충분히 행한 것은 영계에서도 속 시원히 보인다.
31. 영계에서 게시할 때는 ‘내용’을 보인다.
32. 확대시켜 보고 행해야 푸짐하다.
33. <축소>는 ‘방’ 잔치며, <확대>는 ‘정원’ 잔치다.
34. <축소>는 왜소하고, <확대>는 웅장하고 아름답다.
35. <축소>는 ‘작게 행하는 것’이고, <확대>는 ‘크게 행하는 것’이다.
36. <축소>는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고, <확대>는 ‘다 보는 것’이다.
37. 조금 더 하면, ‘확대’다.
38. 사진이나 그림 작품도 작으면, 작게 감동되고 작게 느껴진다.
39. 선을 넘어서 확대하면, 실체와 다르니 기대에 어긋난다. 고로 본체의 크기대로 합당하게 확대하는 것이다.
40. 하나님은 ‘존재물의 크기’를 합당하게 창조하셨다. 사람의 크기도, 만물의 크기도 모두 그 종류대로 합당하다.
41. <태양>도 축소시켜 보니 보통으로 보인다. 확대해서 본체 크기로 보면 모두 충격과 감동을 받는다.
42. 저마다 행하기는 하는데, ‘축소’시켜서 행하니 별 효과가 없다. ‘확대’시켜서 본 존재만큼 행하면, 그때는 표적이 일어난다.
43. 전도, 강의, 관리, 증거, 설교, 기도, 찬양도 확대해서 100% 제대로 해야 마치 태양 옆에 가서 직접 본 것같이 충격을 받는다.
44. <화산이 폭발한 것>도 TV 화면으로만 보면, 조금 충격을 받는다. TV나 사진으로 백 번, 천 번 보는 것보다 가서 현장에서 보면 한 번만 봐도 비교도 안 되게 충격을 받는다.
45. <사람>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체’로 보면 수백 배 크게 보니, 감동도 깨달음도 다르다.

46. <월명동>도 사진이나 화면으로 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는 것이 천 배, 만 배 더 감동적이고 충격적이다. 사진은 '실체'에 비해 만 분의 일, 십만 분의 일도 안 된다.
47. 모두 '확대'해서 보고 행해라.
48. <축소>는 '되나? 안 되나?' 실험하고 연구할 때 하는 것이다.
49. <축소>는 '1분'이고, <확대>는 '1시간'이다.
50. <하루의 축소>는 '1시간'이고, <확대>는 '24시간'이다.
51. <한 달의 축소>는 '하루'이고, <확대>는 '30일'이다.
52. <축소>하면 작아서 잘하는데, <확대>하면 커서 잘 못 한다. 모두 '확대판'에 도전이다.
53. <돌> 조경도 작은 조경으로는 잘 쌓는다. 확대해서 월명동같이 크게는 못 쌓는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성령과 성자와 함께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작은 일이나. 모두 이와 같이 환경도, 자기도 확대하여 행하고 만들어나가라.
54. 항상 '육'과 '영'은 같이 짝을 지어서 행하기다.
55. <확대한 것>을 봐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56. <손>을 확대하면 '몸'이다.
57. <금단의 열매>를 확대하면 '몸'이다.
58. <각 지체>를 확대하면 '몸'이다. <몸>을 확대하면 '영'이다.
59. 자기 몸이 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가지 않으면 그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60. <확대의 한계선>은 '본 형상'이 존재하는 데까지다.
61. 자기의 잠재 능력이 100% 있는데, 20%만 쓰는 자는 '축소 차원'에서 사는 자다. 마치 존재물을 수백 배 축소시켜서 사진으로만 보는 것과 같아서 감동도 충격도 깨달음도 작게 느껴진다.
62. <모르고 보는 자>는 '축소판'만 보는 자와 같다.
63. <월명동 개발>은 본 존재물대로 '확대'해서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었다.
64. <월명동 개발>도 처음에는 '축소'해서 한쪽에 작게 삽과 팽이, 인력거로 조금씩 흙을 파내면서 토목공사를 했다. 마치 씻는데, 온몸 중에서 지체 한 군데만 씻는 격이었다. 그러니 모두 보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하며 강 건너에서 쳐다보듯 했다. 몇 년 후, '확대'해서 행하니 그때는 모두 보면서 "청중이 모이겠다." 하고 희망을 걸고 같이 했다. 고로 넓은 운동장이 되고, 잔디성전이 되고, 그곳에 많은 청중들이 몰려왔다. 월명동 만들듯이 매일 행하여 자기 신앙도, 휴거도 완성하여라.

1. 정말 싫어했던 곳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좋아하시는 대로 만드니,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사람도 그리하니 자기를 만들어라. <만드는 것>이 '위대한 일'이다.
2. 만들면, 자기 희망이 이루어진다.
3. <왕>도 만들어서 되는 것이다.<궁궐>도 만들어서 되는 것이다. <밭>도, <논>도 다 만들어서 되는 것이다. 이같이 사람도 자기를 만들어야 '인생 작품'이 되는 것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 만물도, 지구도, 사람도 만드셨다.
5. <자기>를 왜 못 만드느냐. 만들어야 '만든 것'이 존재하게 된다.
6. <자기 육>을 통해 영을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라. 그리함으로 천국 황금성에 영원히 거하는 영이 되어라.
7. 구상하고, 행하기다. 그러면 만들어진다.
8. 만들어 놓으면, '존재'한다.
9. 크게도 만들 수 있고, 작게도 만들 수 있다.
10. <자기 몸>도 운동해서 멋있게도 만들 수 있고, 그냥 뒹서 멋없게도 만들 수 있다.
11.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쁜 일인지 알아라.
12. 만드는 기쁨, 쓰는 기쁨이다.
13. 자료가 있어도 안 만들면, 그 가치는 보잘것없게 된다. 가련한 존재가 된다.
14. <월명동을 만들기 전>에는 쓸쓸하고, 적막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의 궁'이 되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귀히 쓰는 곳이 되었다.
15. <차>도 안 만들면, 그냥 쇠덩이에 불과하다. 만들어 놓으니, 사람이 편하게 타고 지상에서 날아다니니 얼마나 좋으냐. <신앙>도 만들어서 '신'이 되는 것이다.
16. <차>도 만드는 대로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저마다 놀지만 말고 '좋은 것'을 갖추게 만들어라.
17.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성자와 성령과 주와 함께 만들어라.
18. 만들면, 딴 세계다.
19. 설교 말씀도, 잠언 말씀도 다 받아서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만들어진다.
20. 매일 자기를 만들기다. '휴거의 영'으로 완성하기다.
21. 자기는 모르니, 무엇을 만들지 기도하고 간구하여라.
22. 필요한 것을 만들어라.
23. 자료가 있는데도 안 만들면, 그 값이 백 분의 일도 안 된다.

24. 만들면, '천국의 존재물'이 된다.

25. 월명동 만들듯이 자기를 만들고, 삶 속에서 만들 것을 만들라고 했는데도 왜 모르느냐.

26. 가두어 놓았어도 지구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해 나가는데, 왜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행하지 않아서 만들지를 못하느냐.

27. 만들어야, 만든 것이 보인다.

28. 만들 때 '자기 구상'으로 만들면 너무 작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으로 만들어야 1000년 역사 동안 사연이 남아 이야기하며 쓰게 된다. 같이 만들어야 그 사연이 깊고 귀하다.

2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라서 '구상'을 주고 같이 행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자기 육신'을 통해서 만드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항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구상을 주시고 각자 자기 육신을 통해 행하게 해서 '같이' 만드시니, 늘 증거해라. 이야기하여라. 그래야 만든 자기 육신도 평생 기뻐하며 쓴다.

30. <월명동을 만들기 전>에는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하고, 썩은 물이 흐르고, 깊고 깊은 골짜기로 적막한 곳이었다. 이야기하려면 한 권의 책이 된다. 그같이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그러니 한 평에 싸게 3천 원, 6천 원, 몇만 원에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들어 놓으니, 도시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땅, 귀한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31.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만 기쁨이 온다.

32. <차원 높은 자>만 '사람 보화'도, '세상 보화'도 안다.

33. <보화>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아니다. 월명동 보화도 그런 보화가 아니다. 만일 월명동에 바위만 한 황금 덩이가 있다고 그리 귀히 쓰겠느냐. 세상의 어떤 보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니 그리 귀히 쓰는 것이다.

34. <월명동>은 성자바위만 한 황금 덩이보다 더 귀하고, 더 값있고, 더 가치 있다. 깨달아라.

35. 깨달지 못하고 보는 자는 보통으로 본다.

36. 금덩이만 귀한 것이 아니다. '귀히 쓰여지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 고로 금덩이를 팔아 금보다 더 귀히 쓰여지게 집도 짓고 정원도 만들어서 개발하여 사용한다.

37. 흔히 "돈이 귀하고 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더 가치 있게 귀히 쓰여지는 것'을 사서 '더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고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

38. 자기 소유를 팔아 '더 귀히 쓰여질 것'을 얻는 것이다.

39. 자기 목숨이 귀하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다. 그러니 자기 목숨 다해 행하여 영원히 남는 '영'을 위해 살아라. 자기 영을 구원시키고 휴거시켜, 영원히 쓰여질 것을 위해 행하며 만드는 것이다.

40. 자기가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자. 그보다 더 귀히 쓸 것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팔고 그것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첨단 지혜'다.

41. 성경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라고 했다. 자기 소유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으니 사는 것이다.

42.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하면, 실제 땅에 묻힌 귀금속이나 옛날 선조들의 유물들이나 황금 덩이를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섭리역사 39년간 그런 것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밭에 감춰진 보화>란 ‘마음속의 보화, 생각 속의 보화, 생활 속의 보화’다. 또 ‘사람 보화’다. 또 ‘환경의 보화, 월명동 보화’다. 또 ‘합당한 장소에 세워진 성전 보화’다. 또 ‘말씀의 보화, 설교의 보화’다. 이런 것들을 모두 ‘보화’라고 한 것이다.

43. <월명동의 각종 돌이나 나무들>도 모두 ‘보화’다. 고로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찾게 해 주셔서 깨 오거나 사 왔다.

44. 각종 금은보화나 귀금속은 실상 쓰여지는 데는 ‘개인’적으로만 쓰여지니 그 값이 그리 크지 않다. <월명동 보화>는 수십, 수백 가지로 그 존재물대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당세 뿐 아니라 후대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누리고 쓸 수 있으니 그 가치가 더 크고 귀하다. 지혜자가 말하니, 깨달아라.

45. <자기>는 자기에게 있어서 지구 세상 최고의 보화다. 만들고 쓰여지는 만큼 모든 자들에게도 보화가 된다.

46. 이제 ‘보화의 눈’을 떠라. <보화의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귀한 보화라도 값없이 판다. 그러니 ‘보화의 눈’을 뜬 자가 알고 사 간다.

47. <보화>는 ‘자기가 귀하게 보고 쓰는 것들’이다. 고로 집이나, 땅이나, 돌이나, 나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모두 자기에게 귀한 보화들이다.

48. <가치를 알고 귀하게 쓰는 자>만이 ‘보화’를 얻고 쓰게 된다. 고로 많은 보화를 만들려면, 깨닫고 귀히 쓰는 자가 되어라.

49. <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지구 세상의 최고로 귀한 보화다. ‘영원한 영의 보화’다.

50. <메시아>는 ‘최고의 보화’다.

51. <자녀>는 ‘부모’에게 보화다.

52. <사랑하는 자>는 ‘자기’에게 보화다.

53. <세상의 보화>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귀히 쓰고 행하는 자’에게만 보화가 된다.

54. 그때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좋아하는 것이 보화다.

55. 보화도 ‘때’에 따라 있다. 때 지나면, 또 다른 것이 보화가 된다.

56. 때와 상관없는 ‘영원한 보화, 1000년 역사의 보화’들도 있다.

57. <진실한 사랑>은 ‘영원한 보화’다.

58. <진리의 보화, 시대 말씀의 보화>다. <진리의 보화, 시대 말씀의 보화>로 인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고 휴거되어 천국 황금성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살게 된다.

59. <자기>라는 ‘인생 자료’를 가지고 별별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된다. 곧 자기 몸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그 뜻대로 행하며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최고’다.

60. 월명동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었다. 처음에 섭리역사를 펴기 전에는 그곳에 과일나무를 심고 과수원으로 만들

어서 계절마다 열매를 따 먹고, 꿩이나 토끼, 돼지, 말 등 각종 가축들도 기르고 잡아먹으면서, 집도 짓고 ‘에덴동산’을 만들어서 살려고 했다. 이는 욕신이 살면서 최고 희망을 누리며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만들게 되었다. 고로 ‘개인적 차원’에서 ‘가정적 차원’, 그리고 ‘민족적 차원’,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 천주적 차원’으로 만들게 되었다. 이같이 저마다 자기가 각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많다. 그러나 그중에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후회가 없다.

61. 자기 욕신을 가지고 자기 영을 ‘영원한 휴거의 영’으로 만든 자는 이 세상 창조 이래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것’을 만든 자다.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울무에 얽혀 잡힌 산돼지도 ‘제때’ 빨리 갖다 먹지 않으면, 썩어서 악취가 난다. ‘제때’가 얼마나 귀하냐.
2. <만사의 모든 일>도 ‘제때, 제시간’에 행하는 자는 얻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3. 칼같이 ‘제시간’을 지켜 보아라.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계’와 같으시다.
4. <시간>을 지키면, 시간에 안 쫓기고 많은 것을 하게 된다.
5. <시간>은 ‘돈’과 같아서 시간을 투자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
6.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는 자들은 ‘시간을 쓸 곳’을 만들어라.
7. 시간의 리듬이 깨지고 질서가 흐트러지면, ‘허송 시간’으로 시간이 값없이 흘러가 버린다.
8. <흐르는 물>을 ‘댐’으로 막듯 시간을 막고, ‘수문’으로 흐르는 양을 조절하듯 시간을 조절하며 써야 성공한다.
9. 산짐승을 잡듯 시간을 잡아야 잡힌다. 안 잡으면, 그냥 가 버린다.
10. 물고기를 잡듯 시간을 잡아야지, 그냥은 안 잡힌다.
11. <행하는 것>은 ‘그물’이고, <행할 일들>은 ‘각종 짐승이나 물고기’와 같다.
12. <행함>으로 ‘할 일’을 잡는 것이다.
13. <할 일을 행함>으로 ‘시간’을 잡는 것이다.
14. 잠 시간, 잡시간도 완전히 잡기다.
15. <정신과 생각>으로 ‘시간’을 잡기다. <시간>을 잡기만 하고 ‘할 일’을 행하지 않으면, 물같이 시간은 흘러가 버린다.
16. 이 시간도 잠에서 깨서 ‘황금 새벽 시간’을 잡은 것이다. 하지만 ‘할 일’을 행하지 않고 시간을 잡고만 있으면 시간은 죽고 끝난다. <황금 새벽 시간>을 잡고 이같이 잠언을 쓰니, 제시간에 행함으로 ‘시간과 할 일’을 모두 잡았다.
17. <시간>은 마치 ‘여름철의 얼음’과 같아서, 안 먹고 손에만 잡고 있으면 녹아 없어지듯 ‘할 일’을 하지 않고 잡고만 있으면 없어져 버린다.
18. <때>가 되면, ‘사람’도 늙어 죽고 ‘각종 만물들’도 늙어 죽듯이 ‘시간’도 늙어 죽는다.

19. <시간>이 최고로 빨리 죽는다.
20. <1시간>은 '1시간'을 살다 죽고, <1분>은 '1분'을 살다 죽고, <1초>는 '1초'를 살다 죽는다.
21.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죽는 것>이 '시간'이다. 번개같이 왔다가 번개같이 죽는다.
22. <인생>도 날마다 '시간이 가는 만큼' 죽어 가고 있다.
23. 죽기 전에 '자기'도 쓰고, '만물'도 쓰고, '시간'도 써라.
24. 존재할 때, 살아 있을 때 써라.
25. <음식>도 존재하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된다. '제때' 먹어야 그 영양분이 자기에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10년, 20년, 평생 유익하게 쓴다.
26. <시간>도 '제시간'에 싱싱할 때 쓰기다.
27. <할 일>도 '제시간'에 싱싱할 때 하기다.
28. <제시간>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천생연분이다.
29. <제시간>은 '남자'와 같고, <할 일>은 '여자'와 같다. 고로 서로 만나고, 사랑을 한다. <그 시간>과 <그 시간에 할 일>을 짝지어 놓은 것은 '만남'이고, <그 시간에 할 일을 하는 것>은 '시간'과 '할 일'이 사랑 관계를 하는 것이다. 고로 각종 것을 낳아 놓는다.
30. 사람은 '시간'을 쓰며 사랑의 기쁨과 흥분도 얻고, '할 일'을 하며 각종 사랑의 기쁨과 흥분도 얻고, '시간과 할 일'이 하나 되어 행하며 각종 사랑의 기쁨과 흥분도 얻는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자녀를 낳듯 '시간과 할 일'로 인해 각종으로 얻는 것이다. 이것을 얻는 기쁨과 흥분이다.
31. <가장 큰 기쁨과 흥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제때,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삼위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육도 영도 축복해 주시고, 거기서 얻은 것을 같이 쓰고 누린다. 그리고 계속 그 뜻대로 행하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휴거를 이루고 천국 황금성의 주인이 되어 삼위와 영원히 같이 쓰고 누린다.
32. 사람이 아는 만큼 행하여 얻는다.
33. 모르면, 황금 시간도 황금같이 못 쓴다.
34. 알아도 정신과 생각이 게으르면 못 한다.
35. 가치를 제대로 몰라도 못 한다.
3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정신으로 행해야 할 수 있다.
37. <인간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역시 '유형 세계'를 면치 못한다.
38. <황금 시간>을 '육에 속한 육적 차원'으로 쓰는 것과 '영에 속한 영적 차원'으로 쓰는 것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다. 마치 '자기 무게'와 '지구 무게'의 차이다.

39. 사탄이나 귀신들이 막거나 사람들이 막고 방해해서 못 하는 것도 많지만, 실상 자기가 하고자 하면 100% 할 수 있다.
40. 시간이 있어도, 알고 행할 힘이 있어도, 거의 ‘자기’가 안 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41. <황금성 휴거>도 이미 그동안 많이 가르쳐 줬기에 자기도 그 말씀을 듣고 안다. 그러나 자기가 안 해서 차원을 높이지 못하고 그 위치에 서 있다.
42. 구원도, 휴거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자기가 행하지 않아서 못 이루고 있다.
43. <성공>은 ‘자기가 행해서’ 이룬다.
44. 만사에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쉬운 것이 없다. 새벽에 일찍 잠을 깨서 일어날 때와 같이 힘들다.
45. <먼저 시작을 하는 자>는 ‘주인’이 된다. 그가 ‘끝내주는 자’다.
46. <끝까지 하는 자>가 ‘주인’이다. 그가 ‘끝내주는 자’다.
47. <끝까지 견디는 자>만 ‘열매’를 얻는다.
48. <끝까지 견디고 행하는 자>만 ‘자기 목적’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뤄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
49. <끝>에 가서 ‘처음부터 행한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자들 중에 아담과 하와를 택하시어 종교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구약 4000년 역사와 신약 2000년 역사를 지나 지금은 ‘마지막 끝 역사’를 펴고 계신다.<끝 역사>에는 ‘그동안 했던 것’을 거둔다. 고로 그동안 퍼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시고 더 이상 없는 ‘휴거 역사’로 거두신다.
51. <휴거 역사>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해 줄 수 없는 가장 큰 뜻’을 인간에게 퍼신다.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시대 보낸 구원자를 통해 그 뜻을 퍼신다.
52. 구시대 기성인들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모두 그를 따라 육도 영도 하늘나라로 간다고 성경을 풀고 이를 ‘휴거’라고 칭해 왔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면, ‘육’이 휴거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영’만 휴거되어 간다. <육신>은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휴거의 삶을 살다가 죽고, 육신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한 것은 모두 혼과 영에게 가서 ‘하늘에 속한 형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된다. 육신이 새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대로 <영>이 변화되어 더 이상 없는 최고의 황금성 천국으로 간다. 이것이 ‘휴거’다.
53. <육>은 ‘세상’에 살아 있어도, <휴거된 영>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 지상으로 왕래하며 자기 육과 혼을 도우면서 존재하다가, 육이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의 신부가 되어 산다. 다만, 성약 주관권의 후손들을 살피 주려고 땅에 오기도 한다.
54. 하나님은 휴거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구약 종급 4000년 역사’를 펴고, ‘신약 자녀급 2000년 역사’를 펴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 성약역사 때 휴거로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시고 ‘1000년 혼인 잔치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중심해서 삼위와 함께 한 시대를 이루고 휴거된 영들은 천국 황금성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
55.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는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 이때는 마치 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과 같이 역사를 펴셨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구약 때는 ‘근본의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종의 입장’에서 키우고 역사하셨다. 고로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통해 ‘구약 4000년 구원역사’를 펴셨다. 그리고 때가 되

여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셔서 따르는 자들을 ‘자녀 입장’으로 대하시고, 따르는 자들도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고 살게 하시며 ‘신약 2000년 구원역사’를 펴셨다. 마지막 역사인 성약역사 때는 하나님이 ‘신랑’ 격인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삼위의 육’으로 삼고 ‘신랑 입장’이 되어 새롭게 역사를 펴신다. 고로 따르는 자들은 ‘신부 입장’이 되어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이 역사가 ‘성약 1000년’동안 이루어진다.

56. 보낸 자가 살아 있는 ‘당세’ 때는 ‘영 휴거’ 역사가 진행된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자기 영이 ‘신부’로 변화되면 휴거되어 천 년 동안 혼인 잔치 한다.

57. 구약 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종급 구원역사’를 펴시고,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자녀급 구원역사’를 펴셨다. 성약역사는 ‘신부 역사’로서 사랑의 근본자이신 삼위가 ‘신랑 입장’이 되셔서 땅에 보낸 자를 통해 ‘휴거 역사’를 펴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신부’로 대하시며 그들과 함께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신다. 이는 ‘기쁨과 사랑과 의의 잔치’이며, ‘그 뜻을 이룬 잔치’다.

58. 신약역사 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던 자들의 불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죽음’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고, ‘신약 2000년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성약역사 때도 시대 말씀을 불신하고 구원자를 믿지 않은 연고로 시대 구원자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육에 갇혀 찢값을 대신하고, ‘시대 구원과 휴거 역사’를 폈다.

59. 하나님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깨끗하게 되고, 사랑으로 단장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

2. 알려면, 행하여라. 행하면, 알게 된다.

3. 행하지 않고도 아는 자가 있다. 자기 혼이나 영으로 알거나, ‘신의 가르침’으로 알기 때문이다. 고로 그런 자는 그 일에 대해 ‘신에 속한 자’다.

4. 사람들은 어떤 땅이나 집을 살 때 그것을 사면 유익할지, 혹은 손해가 갈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런데 모르니, 답답해 미친다. 그때 누가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완전하게 답을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보다 수억 만 배 더 중한 것이 있으니, 곧 미래의 ‘영원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100% 알고 모두에게 확실히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하는 자가 있으니, 그런 자는 가치를 알든지 모르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정말 무지하고 불쌍한 자다.

5. 사람이 죽고 그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에 가고서 그제야 안다. 그러나 그때는 돌이키지도 못한다. 이것을 미리 확실하게 알고 가르쳐 줬는데도 ‘가치’를 모르니, 행하지 않다가 결국 멸망으로 구름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6.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면서도 자기와 같이 가는 자들이 많으니 ‘좋은 길이구나.’ 하고 믿고 이야기들을 하며 가고 있다. 그러다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제야 알고 기절한다. 그러나 이미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에 절대 못 나간다. 10억 년을 후회하고 회개해도 안 된다. 지옥 길은 들어가는 길만 있지, 나오는 길이 없다.

7. 천인들이 하나님께 정말 가치를 몰라서 지옥에 간 자이니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해도 안 된다. 혹여 하나님이 꺼내 주신다고 해도 안 된다. 왜 안 될까? 가령 100억짜리 그림을 모르고 불에 넣었다 하자. 그제야 가치를 알고 꺼내려 해도 이미 불에 넣어서 ‘재’만 남아 있기에 꺼낼 수도 없고, 꺼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와 같이 <자기 영>도 그러하다. 영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도 아예 다시 생각을 안 하신다.

8. <지옥으로 가는 영>은 자기가 ‘지옥 길’로 가도 전혀 모른다. 알면 누가 가겠느냐. 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으로 깨우쳐 주신다. 그러나 안 믿고, 자기가 살던 삶이 좋으니 계속 그대로 산다. 자기 육신이 죽어서 그 영이 지옥문을 열 때까지도 모르다가, 지옥문을 열면 놀라서 정신을 잃는다. 지옥문을 여는 순간 ‘불못’에 들어

가니, 마치 끓는 쇠물에 육신을 넣었을 때와 같은 기분이다. 고로 그제야 알고 소리 지른다.

9.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누가 고통을 생각하겠나. 최고로 스릴을 느끼며 좋아서 달린다. 그러다 차가 팡 충돌하면, 그때서야 몸이 다치니 아픔을 느낀다. 지옥으로 갈 때도 그러하다. 갈 때는 좋아서 가다가 지옥에 다 가서 지옥문에 팡 부딪히면 그제야 알고 느낀다. 그 전에는 모른다.

10. 세상에서 먹고 즐기며 살 때 누가 지옥을 느끼고 생각하겠나.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이 시대 말씀을 믿지 않고 행치 않고 살면, '사망의 삶'으로 간다. 자기 육이 세상에서 살 때 행한 그대로 '지옥'으로 처해 간다.

11.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12.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지옥에 안 보내시겠지. 지옥에 갈 만한 삶은 안 살았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 말고, 자신이 자신할 만큼 '온전한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삼위와 주를 제대로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

13. 곧 그 날에 물에 빠져 죽는 길을 가면서도 먹고 마시며 즐기며 간다. 고로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모르고 기뻐 웃으며 그냥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사고 나서 물에 빠져서 물 한 번 들이키면, 그제야 당하니 알고 느낀다. 또 물 한 번 더 들이키면, 그때는 몸부림치며 '왜 이 길로 왔지?' 하고 후회한다. 또 물 한 번 더 들이키면, 이를 갈며 눈을 부릅뜨고 '왜 죽는 길을 가면서 즐기고 살았지?' 탄식하고 소리 지른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사경을 헤매니, '이제 죽는구나. 세상에서 벌여 놓은 것들도 다 놓고 가고, 사랑하는 자와 자녀도 못 보고 가는구나.' 하며 그제야 알고 후회한다. 그때서야 알면 뭐하나. <지옥으로 가는 길>도 그러하다.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때서야 알고 후회하고 지옥이 떠나가게 소리 지른다. 그때는 후회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 개미 하나 쳐다보는 자가 없다. 하나님도 세상 그 누구도 그 소리를 안 듣는다. 거기서 하루에 1억 번씩 하나님을 부르면서 잘못했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신다.

14.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도 성령도 그리 감동 주고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고 했어도 그 말을 안 들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다. 지옥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대답했어야 했다. 그때 자기가 '귀의 문'을 닫고 산 대로 하나님은 영원히 '귀의 문'을 닫으신다. 고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소리쳐도 모르신다.

15. 자기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말'을 지옥의 사자들을 앞에 두고 하니, 지옥의 사자들은 그 회개의 대가로 창으로 찌르고 잔인하게 쏜다. 사탄, 마귀, 지옥의 사자들은 악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른다. 이 광경을 내 영과 혼이 직접 지옥에 가서 보고 온다. 그래서 그리도 애타게 믿으라고 외친다.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지옥을 안 보고 와서 안 믿고, 오히려 우습게 생각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로 듣는다.

16. <세상에서 악하게 산 자들>은 지옥에 가서 '그 행위대로' 잔인하게 받는다.

17. 그동안 악하게 살았어도, 지금부터 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보낸 자를 통해 전능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100% 돌이키고,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면 지옥에 안 간다.

18. 세상에서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진실로 믿고 말씀을 행하며 살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을 면하고 그 반대의 세계인 '천국'으로 가는 삶이니,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의롭게 살아야 된다.

19. <자기 영이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누가 지옥으로 갈지 알기에 그리 애간장을 태우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신 말씀'을 전한다.

20. 지옥에는 안 갔어도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은 지옥 다음의 고통 세계인 '지옥 쪽에 속한 중간 영계'로 간다. 거기서 허를 깨무는 고통을 받으면서 의를 행해야 더 나은 '천국 쪽에 속한 중간 영계'로 올라와서 살게 된다. 거기서 계속 의를 행하면, '천국'으로 가는 영도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는 그 행위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옥 쪽'으로 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영이 아예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

21. 육신이 살아 있어도 그 ‘육’이 ‘죽음의 선고’를 받고 사는 자가 있듯이, 육신이 살아 있어도 그 ‘영’이 ‘지옥의 선고’를 받고 사는 자가 있다.

22. <자기 육>이 지옥에 안 가고 ‘영’이 지옥에 간다고 하니, 사람들은 흔히 “육은 죽으니까 육신의 고통은 없다.”라고 말한다. <영>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살면서 죄를 지었기에 그 육이 죽으면, ‘죄를 지은 자기 육의 마음과 생각’이 ‘혼’과 일체 되어 ‘영’과 함께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다. 자기 육신은 죽어도, ‘자기 마음과 생각’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자기 육체의 살덩이만 썩어서 지옥에 안 가지, 자기 육신이 죄를 지은 그 찢값으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지옥에 간다. 고로 육신이 간 것과 같이 100% 똑같이 느낀다. 육신은 썩어서 못 가고, 자기 마음과 생각과 혼이 ‘영체’를 쓰고 가서 그대로 고통을 받는다.

23. 꿈에서 해를 당하면, 자기 육은 고통스럽지 않아도 자기 혼체는 해를 당한다. 그리고 혼과 일체 된 ‘생각과 마음’도 똑같이 해를 당한다. 이와 같이 ‘영’이 지옥에 가면, 육체 살덩이는 고통을 안 당해도 혼과 영과 일체 된 ‘생각과 마음’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느낀다. 육신은 안 가도 ‘생각과 마음’이 ‘혼’과 일체 되고 ‘영’과 일체 되어 가니, 육신이 직접 간 것과 같이 똑같이 느끼면서 받는다. 하나님은 이같이 ‘공의의 법’을 정해 놓으시고, 육신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대로 그 찢값을 받게 하셨다.

24. 하나님이 귀하고 귀한 것을 줘어도 자기 생각대로만 느낀다. 귀한 것의 가치도 아는 대로만 알고 기쁨과 희망을 누린다. 기쁨도 역시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만 느낀다. 고로 배우고 차원을 높여라.

25. 제자들과 타국에 갔을 때다. 그 나라에 가서 20만 원 정도 하는 ‘작품’을 하나 샀다. 그리고 늘 그 작품을 보면서 ‘그 값의 가치’만큼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러다가 내 아우 범석 목사가 그것을 얼마에 사 왔냐고 해서 사 온 값을 말해 주니, 그 작품은 역대 정도의 작품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역대 정도는 안 돼도 수천만 원은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수천만 원의 가치’만큼 보면서 기뻐했다. 이같이 만사도 자기가 ‘아는 만큼’ 기쁨이 차고 넘친다. <휴거>도 ‘차원’만큼 기쁜 것이다.

26. 모두 자기 인생도 귀히 보아라. 자기 생각보다 그 가치가 귀하다.

27. <최고 귀한 자>가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사랑으로 일체 되면, 삼위가 귀한 것과 같이 자기도 귀한 자가 되어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고 영원하다.

28. 구원도, 휴거도, 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도 가치를 아는 ‘자기의 수준과 차원’만큼 즐겁고 기쁘고 희망차다. 고로 모두 배우고 ‘가치의 눈’을 떠라.

29. 어떤 자가 시골 시장에서 골동품 한 개를 사서 가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옛날 도자기나 골동품을 사서 팔아 먹고 사는 자였다. 이날도 “오늘도 이것 하나 사 왔구나.” 하고 푸념하며 가다가, 우연히 골동품 전문가를 만나서 이날 산 골동품 감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감정을 받아 보니, 몇억짜리 물건이었다. 그 말을 듣고 충격 받고, 그때부터는 그 ‘가치를 아는 만큼’ 희망에 차서 기뻐하며 살았다. 알면, ‘아는 만큼’ 기쁘고 희망차다. 이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휴거도 더 배우고 알아라. 그래야 ‘아는 만큼’ 삼위와 주와도 일체 되고 더 기쁘고 희망차다.

30. 가지고 있어도 귀한 것을 모르면, 기쁨이 없다. 알면, ‘아는 차원만큼’ 기쁘고 희망찬 것이다.

31. <월명동>도 가치를 모를 때는 늘 살면서 월명동 때문에 고생하니 떠난다고 했다. 그런데 기도하고 깨닫고 아니, 하나님은 “너, 월명동 때문에 이제 잘된다. 나 여호와를 100%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고, 그와 같이 성령과 성자도 사랑하며 살아라.” 하셨다. 집터 200평 가지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었다. 그때는 200평을 좋은 값에 팔아도 몇십만 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보니, 200평 땅이었지만 ‘보화 덩이’였다. 그 땅으로 시작해서 점점 주변 땅도 사서 개발하니, 오늘날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되었다. <자기 인생>도 마치 ‘처음 월명동 집터 200평 땅’과 같이 귀하니, 가치를 깨닫고 개발하여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라.

32. 1970년대 초에 월명동에 있는 작은 소나무를 보고 “너도 나같이 희망도 없다. 손목만 한 나무야. 나같이 누가 너를 거들떠보겠느냐.” 했다. 그때 월명동 산 너머에 있는 소나무들은 한 아름씩 되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키우시니 월명동 소나무들도 모두 커서, 산 너머에 있던 나무보다 더 귀히 보고 쓰신다. 일 년이면 수만 명씩 와서 보고 사랑해 준다.

33. <나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 전에는 보잘것없던 것이 그리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하겠느냐. 모두 깨닫고, 하나님의 주관권 속에 살면서 기뻐하고 희망으로 살아라. 아는 만큼 기쁨과 희망에 차서 살고, 변화되어 차원도 높여 간다.

<2017년 9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만든 대로 ‘형체와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다.
2. 형체와 형상과 모양에 따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기도 하고, 흉하고 무섭기도 하다.
3. <사랑과 진리와 선(善)>을 행하는 대로 ‘자기 영의 형상과 모양’이 이루어진다.
4. <선의 형상>은 ‘아름답고 신비한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악과 불의의 형상>은 ‘흉하고 무서운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5. <어떤 형상과 모양이나>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6. <선>은 ‘아름다운 선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되어 형체가 이루어지고, <악과 불의>는 ‘흉한 불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성되어 형체가 이루어진다.
7. <선을 행한 자>는 ‘형체’를 보고 안다. 자기 몸에 ‘행위의 형체’를 다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8. <악을 행한 자>도 자기 몸과 얼굴에 그 ‘행위의 형체’를 다 가지고 다닌다.
9. <선>과 <악>을 ‘형체’를 보고 분별한다.
10. <육신의 모양>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행위나 생각이나 말’로 자기의 선과 악이 나타난다.
11. <선의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악의 근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악’이요, ‘불의’다. 이 두 세계는 각각 선과 악의 발생지요, 원인이다.
12.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좌우되고, ‘선인이나, 악인이나’의 근본이 결정되고, ‘그 형상과 모양과 형체’가 이루어진다.
13. <육의 세계>에서는 선과 악의 행위로 인해 ‘자기 몸의 형체’가 변형되는 것은 아니니,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서 나타낸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선과 악의 행위에 따라 ‘영의 몸’까지 완전히 그 형체가 달라진다.
14. 사탄과 마귀들을 보면, 악한 행위만큼 그 얼굴과 몸이 ‘짐승 형체’가 되어 ‘뱀이나 괴물의 몸’을 하고 다닌다.
15. 영계에서 악한 자들의 영을 보면, 세상에서 그 육신이 살면서 행한 대로 ‘짐승의 영’이 되어 다닌다. 어떤 자는 영의 형체가 사람 같지 않고 허리나 몸이 다리같이 가늘고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입도 길어서 흉측하고, 어떤 자는 짐승의 영이 되어서 ‘얼굴이 긴 여우 같은 형체’를 하거나 ‘뱀의 형체’를 하고 다니고, 또 어떤 자는 짐승 중에서

도 ‘흥측한 짐승의 형체’가 되어 다닌다. <자기의 악한 행실>로 날마다 그렇게 모양과 형체가 만들어진 것이다. 짐승같이 사니, ‘짐승의 형체’가 된 것이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며 살면, 선과 의의 행위대로 그 형체가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지고 변화된다.

17. <이단의 영들>은 그 형체가 ‘비진리’로 이루어진다. 고로 그 영들은 균형을 잃은 모양과 형체가 되었다. 어떤 자는 불구자가 되어서 몸은 바짝 마르고 가는데 머리는 한 아름이 된 영도 있다. <머리가 큰 것>은 사탄같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지, 자기 교만’이 뇌에 꽉 차서, 그 표로 머리만 크게 형성된 것이다. <몸이 말라서 뼈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의 말씀, 영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이다. 비진리와 거짓과 불법을 행한 대로 그리 형성된 것이다.

18. 사람이 만물을 가지고 만드는 대로 되어지듯, <영>은 ‘육’이 행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19.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그 ‘행위’도 뒤바뀌듯, <영>도 <혼>도 ‘마음과 생각’에 따라 그 형상이 ‘악과 불의’로 뒤바뀐다.

20. 하루아침에 진리를 깨닫고 의와 선을 행하면, 그 ‘생각과 행위’에 따라 영도 혼도 ‘선의 형상과 모양’으로 뒤바뀐다.

21. <자기 미(美)의 형상>은 ‘사랑과 진리의 생각’에 의해 뒤바뀌니, ‘생각’을 잘해야 된다.

22. <형상을 변하게 하는 근본적인 발생지>는 ‘생각’이다.

23. 생각에서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면 얼굴의 형상이 금방 흉하게 뒤바뀌고, 생각이 기쁘면 얼굴의 형상이 웃음과 평화로 뒤바뀐다. <생각>에 따라 행하니, 늘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중심하여 생각해야 된다.

24. <사랑>으로 ‘형상과 모양’이 가장 아름답게 형성된다.

25. <진리>는 ‘빠’가 되고, <사랑>은 ‘살’이 되어 형체를 이룬다. 고로 알고 행하여라.

26. 화산 지대 땅속의 열이 뜨거울수록 그 지역의 돌이 녹아 마그마가 폭발하고, 그 장소에 각종 모양과 형태로 여러 가지 굴이 이루어진다.자기도 ‘진리와 성령의 불’로 뜨겁게 녹아 폭발하듯 해야, 신비한 동굴과 같이 ‘자기 형상’도 아름답고 신비하게 형성된다.

27.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땅속 ‘열기의 강도’에 따라 돌을 녹이면서 마그마가 되고, 그것이 폭발되어 나온 곳에 굴의 형태와 모양이 여러 가지로 형성된다. 뜨거운 용암이 바위를 녹이듯 자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성령을 받는 ‘불덩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의 불의 강도’에 따라 이 시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녹아져서 마치 ‘천연 굴’이 형성되듯 ‘자기 육과 영의 형체’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형성되어 간다.

28. 뜨거운 용암이 끊임없이 바위를 녹이며 신비한 천연 굴을 만들어 가듯이, 저마다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과 진리의 행위’로 자기 형상과 모양을 최고로 변화시키며 아름답고 신비하게 제2의 창조를 하여라.

29. <자기 육신>도 개발하면 끝이 없다. 단계별로 차원을 높이면서 개발하다 보면, 지구 세상이 끝도 없다. <개인>도 자기 일생을 두고 끝없이 ‘자기 삶의 세계 개발’이다.

30. <자기 영>도 개발하면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까지 최고 목적을 두고 계속 영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것이다. 단계별로 차원을 높이면서 완성하기다. <그 차원에서만 즐기고 있는 자들>은 계속 더 개발하면서 끝없이 ‘영’을 변화시켜야 된다. 마치 세상에서 육신이 살면서 계속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사업도 번창

시켜 나가듯이 끊임없이 차원을 높여 영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다.

31. <월명동>도 개발하고 만들수록 ‘형상과 모양’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되었는데, 자기 육도 영도 자꾸 차원을 높여 만들수록 희망이고 기쁨이다.

32. <육>은 때가 되면 죽으니, 더는 못 한다. <영>은 안 죽으니, 영의 세계에서 계속 변화시킨다.

33.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해지고 얻는 것이 없다. 인생 더 늘기 전에 어서 해라.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뇌가 졸면, 못 막는다.

2. 뇌 자체가 피곤해서 작동이 안 되는 상태는 엔진이 꺼진 상태와 같다.

3. <기계>도 엔진이 과열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듯이, <뇌>도 피곤하여 한계에 처하면 자동으로 작동이 안 되어 생각이 흐려진다.

4. 뇌가 피곤하여 졸리면, 잠이 깨지지를 않는다.

5. 뇌가 피곤하면, ‘온전한 작동’을 못 한다.

6. 일을 많이 하면 힘이 다 빠져서 힘을 못 쓰고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듯이, <뇌>도 하나의 ‘육신’이기에 뇌가 피곤하면 힘이 없어서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제시간에 일어나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에 1초도 어기지 않고 일어나겠다고 하고 1시 전에 깼는데, 안 일어나졌다. 이를 두고 연구하여 쓴 말씀이다.)

7. 인간은 저마다 ‘제한된 힘’이 있다. 그 힘을 가지고 나눠서 쓴다.

8. <육의 힘>도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 이상 무거운 것은 못 든다. 이와 같이 <사람의 뇌>도 <생각>도 ‘한정된 힘’이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외부에서 생각을 받아야 된다.

9. 뇌가 피곤하면,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 졸린 상태가 된다.

10. 하루는 계속 손에 힘을 주고 썼더니, 볼펜 하나도 잡을 힘이 없어서 손에서 놓쳤다. 이같이 <뇌>도 계속 잠을 안 자고 쓰면, 피곤해서 생각이 제대로 안 나고 흐려진다.

11. 뇌가 피곤하면, 몸 전체도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

12. <한정된 뇌의 힘>을 조정해서 나눠 써야 된다.

13. <육신>이 한정된 힘 외에 힘을 계속 쓰니, 몸살이 나고 아팠다. 무리해서다.

14. <뇌>도 무리하면, 병이 난다.

15. <두 손>을 무리하게 쓰니, 물건을 손에 쥐어도 힘이 없어서 놓쳤다.

16. <뇌>도 힘이 없으면, 뇌에서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17. <뇌>가 졸리면 안 된다. <생각>은 졸리지 않아도, <뇌>라는 몸이 졸리면 생각으로 막을 수가 없다.

18. <차의 엔진>이 과열됐으면 쉬어야 하듯, <뇌>도 쉬어야 한다.
19. <몸>도 힘이 없으면, 쉬어야 힘이 충전된다.
20. 지계를 지고 가다가 힘이 없으면 발을 움직이지를 못한다. 그때는 5분 정도 쉬면서 힘을 얻고 그 후에 다시 가야 된다. 이와 같이 <뇌>도 피곤할 때는 쉬었다 가야 된다.
21. 영도, 정신도, 생각도 다 ‘힘의 한계’가 있다. 그 이상은 계속 못 한다.
22. <뛰는 것>도 뛰다 보면 숨이 가빠지고 ‘힘의 한계’가 있어서 계속 못 뛴다.
23. <힘>은 한정되어 있다. 고로 다른 일은 안 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에만 힘을 써서 해야지, ‘한정된 힘’을 가지고 다 못 하는 것이다.
24. 발일을 할 때 ‘육신의 힘’이 다하면, 호미나 낫을 손에 쥐어도 놓친다. 그때는 쉬어야 된다. 그러면 힘이 온다.
25. <뇌>도 생각하지 않고 쉬면, 피곤이 사라진다.
26. <눈>도 힘이 다하면, 피곤하여 잘 안 보이고 눈이 감긴다. 이때는 눈을 감고 쉬면, 다시 잘 보인다.
27. <육신>도 종일 일을 하면 피곤하고, 힘도 없어지고, 신경도 둔해져서 감각을 잃고 졸리게 된다. 고로 잠을 자고 쉬는 것이다.
28. 몸을 씻든지, 뇌를 씻든지 종일 일을 했으면, 몸 전체를 쉬어 줘야 된다. <쉬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잠자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29. 인간은 24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간다. 계속 일을 하면 병이 나니, 개인에 따라 4시간, 6시간, 8시간은 자고 쉬어야 된다.
30. 너무 적게 쉬거나 자면, 오히려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
31. <일을 할 때>도 반드시 쉬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
32. 손도, 발도, 눈도, 뇌도 모두 쉬면서 피곤을 풀어야 ‘일의 능률’이 더 오른다.
33. 다른 일을 하면 117기도가 제시간에 안 되고, 제시간에 모두 기도하면 다른 일이 안 되었다. 이 세 가지 기도 외에도, 네 가지 이상 다른 일도 꼭 해야 되는데, 힘도 시간도 부족해서 안 되었다. 뇌가 피곤하니, 신경이 무기력해지고 졸려서 안 된 것이다.이를 두고 연구하니 ‘뇌의 힘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34. <새벽 기도>도 자기가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하려면, 일찍 자고 쉬면서 ‘시간 조정, 힘 조정’을 해야 제대로 하게 된다.
35. 늦게 자면, 뇌가 피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제시간에 못 일어나게 된다.
36. <뇌>도, <몸>도 각자 길들이고 연단된 대로 쓰지만, ‘한정된 힘’을 무리해서 쓰면 ‘제때 일어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37. <잠을 자고 깨는 것>도 ‘뇌의 피곤’이 다 풀리면, 제대로 작동되어 잠이 깨진다. 이는 마치 저린 발이 풀리면 자동

으로 피가 통하고 신경이 감각을 찾는 것과 같다.

38. <뇌의 피곤>과 상관없이 성령이 깨워 주실 때도 있다. 이 역시 성령께서 '뇌의 피곤'을 풀어 주셔서 빨리 깨지는 것이다.

39. <몸>을 풀어 주면 보다 빨리 피곤이 풀리듯이, <뇌>도 풀어 주면 보다 빨리 피곤이 풀린다.

40. <뇌나 신경의 힘>을 강하게 오래 쓰려면, 운동하여 몸을 연단하듯이 연단하고 단련해야 된다. 그러면 2배, 3배 이상 쓰게 된다.

41. <신앙>도 연단하고 단련하면 평소보다 3배 이상 더 강하게 된다.

42.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오래도록 연단하고 운동선수같이 단련시키고 만들어서 '초인'이 되게 하여 쓰셨다.

43. 모두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도 운동선수같이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써라.

44.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자>도 연습하고 연단하면 100배도 더 잘한다. 수영을 배우지 않고 못 할 때는 2m도 제대로 못 간다. 배우면, 100m, 500m, 1000m씩 가니 100배도 더 잘하게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기도, 전도, 강의, 관리, 각종 예술이나 만사의 각종 것들도 저마다 목적을 두고 배우고 연단해서 도전해야 성공한다.

45.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배우지 않고 연단도 안 하고 도전하면 패하듯이, <시험을 볼 때>도 배우지 않고 시험공부도 안 하고 보면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없듯이, <신앙>도 그러하다. 배우고 연단하며 도전하는 것이다.

46. <휴거>도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한 명도 휴거되지 못한다.

47. 섭리사 밖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휴거'를 이룬 자가 있느냐. 단 한 명도 없다.

48. 배우고 알아야 된다.

<2017년 9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49. <무지>는 몰라서 온 것이다.

50. 무지 몰라서 실패하고 억울하게 되었다.

51.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시대 구원과 휴거도 배우고 행해야 이룬다. <모르는 자>는 100% 모르고 살면서 기다린다.

52.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인데 몰라서 죽고, 평생 고생도 한다.

53. 알면, 하루아침에 부자도 된다.

54. 모르면, 하루아침에 죽기도 하고 다치고 고통을 겪는다.

55. 전능자 하나님은 아시고, 그가 보낸 자는 안다.

56. 모르면, '걱정, 근심, 번민, 염려, 고생'이다.

57. <하나님의 축복>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이 ‘알게 해 주는 축복’이다. <주>도 먼저는 시대를 알게 해 주고 행하게 하였다.

58. <모르는 것>을 알게 해 주니, 이전 시간까지는 가난했는데 그다음 시간에는 부자가 되었다. ‘아는 것’으로 인해 시간차로 부자가 되기도 한다. 가령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난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어 알고 발견하여 그때 순간 부자가 된 것이다.

59. <신앙>도 알면 ‘신앙의 부자’가 되고, 모르면 기성인들같이 ‘신앙의 가난한 자들’이 된다.

6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아는 것>이 ‘육’으로도 ‘영’으로도 ‘최고 부자’다. 행하여 얻기다.

61.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신앙 세계>에서는 ‘아는 것’이 ‘돈’과 같다. <주>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시는 최고의 뜻을 알고, 성자의 육신이 되어 성령과 일체 되어 행하며 이 시대 휴거를 이루고 더 이상 없는 ‘신앙의 부자, 재벌’이 된 것이다. 이것도 모르면, 이 시대를 만났어도 가난하여 불쌍한 자가 된다.

62. 목사들이나 가르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에게 ‘이 시대에 받은 것의 가치’를 가르쳐 주고 알게 해 주어라.

63. <가치>를 모르면 ‘황금’을 받아도 ‘돌덩이’를 받은 것으로 대하고 사니, 뺏긴다. 뺏기면, 다시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4. 자기 귀중품을 잃으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65. 휴거도 잃으면, 사탄이 가져다 깨부수고 아예 없애 버린다. 그러니 못 찾는다.

66.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것’을 매일 이야기한다. 그리고 각종으로 주신 것을 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 잊으면, 그로 인한 기쁨도 즉시 사라진다.

67. <생명이 귀한지 모르는 자>는 ‘생명’을 뺏기고,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받은 것’을 뺏긴다.

68. 어떤 자는 휴거되고도 아무것도 아닌 죄를 짓고 휴거를 뺏겼다. 빈 조개껍질이니, 쫓겨남을 받았다. 자기 권위를 업신여긴 자는 타락한 천사와 같이 쫓아내 버린다.

69.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도 버리고, 휴거됐어도 버리고 이성을 따라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극적인 심판을 받았다. 하늘 사랑을 배신했으니, 자기 일생도 평생 ‘배신’으로 찢값을 받고 살아간다. 이제 이 시대 구원과 휴거를 다시 받을 수도 없고,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끝났다. 영계에 가서 보니, 아예 뇌의 주관권이 바뀌어서 썩은 시궁창에서 살고 있었다. 그 영들은 이미 과거의 것을 다 잃고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본 형체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서 말을 거니,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며 피했다. 쫓아가서 이야기하니, 기억은 조금 하는데 자기는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포기한 상태로 말하였다. 아는 자만 애간장이 탔다. 그들은 ‘극치의 지옥 고통’을 낙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 후회도 하지 않고, ‘신이 자기를 버렸다. 안 버렸으면 자기를 그리되게 안 했을 것이다.’ 하는 사상으로 굳어져서 살고 있었다. 자기가 좋아서 이성으로 가서 타락하고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준 원수가 되니 괴롭기 때문이다. 고로 남 탓, 지도자 탓으로만 돌리고 원망하면서 자기 고통을 풀었다. 이들의 사고는 현실에서 섭리사를 나간 자들의 사고와 같았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잘 나왔다. 여기가 천국이다. 즐기자.” 한다. 그래야 자기가 괴롭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섭리사에서의 삶이 더 좋다고 하면, 더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이다.

70. 어떤 재벌이 제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다가 부도나고 망해서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살게 됐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기는 오히려 전에 회사 때문에 속 썩으며 사는 것보다 현재가 낫다고 하며 살고 있었다. ‘과거’를 부정해야 ‘현실의 삶’이 덜 괴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삶이 지옥 같으니, 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며 속으로 울고 탄식하며 살아간다. <신앙을 하다가 나간 자들>도 그러하다. <신앙의 삶>을 살 때 자기가 ‘신앙의 경영’을 잘못해서 망

하고는 섭리사를 나가서 사망권에 처해 살면서 그 삶이 오히려 낫다고 하며 산다. 그들은 자기 삶을 ‘거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영계에서 영으로도 그런 삶을 산다. 때가 되면, 그나마도 못 살고 그 행위대로 ‘마지막 최고의 고통의 단계’로 가게 된다. 그곳은 극적인 악의 세계라서 마치 ‘1분’이 ‘1000년’같이 느껴지니, 괴로움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같은 사망의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해 어려움도, 핍박도, 환난도 다 이기며 가고, ‘휴거의 가치’를 알고 매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

7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보시니, ‘1:1’의 삶을 살면서 섭리사 안에서 힘을 받고 살아가라.

72. 주를 기다리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막연히 믿고 기다리니, 지금도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산다. 그나마 기성의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그리 목숨 걸고 마음과 뜻을 다해 기다리니, 얼마나 무의미하냐. 헛수고다.

73. <안다고 하는 자들>도 갈 길을 안 가고 태만하게 자기 주관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 알고도 그리하니, 얼마나 무지하냐. 당하면 그제야 안다.

74. 어떤 자라도 ‘자기 행위대로’ 받는다. 행위대로 받으니 얼마나 무섭냐. 괴로움에 이를 갈고 몸부림친다.

75. 자기가 술이나 담배, 마약, 이성 관계 등 각종 불의를 행할 때는 별로 의식 없이 좋아서 미쳐 흥분되어 행하지만, 하나님이 불의를 없애려 심판하실 때는 자기가 행한 대로 고통을 받으니 그때는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를 간다. 지구 세상에서 모르고 사는 인생들 모두 이러하다.

76. <자기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받는다. 어제까지도, 혹은 방금 전까지도 큰소리치며 화려하게 살던 자가 심판이 닥치면 일순간 운명이 뒤바뀐다.

77. 뉴스를 보니, 담배로 인해 죽는 자가 한국에서만 1년이면 6만 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면 스스로 고통을 겪고, 아예 죽기도 한다. 이외에도 술, 마약 등 각종 불법한 일을 하다가 죽고,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나 병으로 죽는 자들은 1년에 수십만 명씩 된다. 이는 모두 ‘생활 속의 전쟁’이다. 전쟁으로 한꺼번에 수십만 명씩 죽는 것은 어려워도 이 같은 ‘생활 속의 전쟁’으로 1년이면 수십만 명씩 죽는다. 그러니 전쟁보다도 더 무섭다. <생활 속의 전쟁>은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기 전에는 늘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신앙>도 모두 완전하게 행하지 않아서 1년에 수천 명씩 죽어 시체가 되어 나간 것이다. 각종 신앙의 병, 생각의 병으로 그리되고 이성으로 죽어 나간 것이다. 고로 말씀을 듣고 매일 자기를 가르쳐라. 지도자들은 정말 사명을 다해 생명들을 관리하여라.

78. 모르면, 모질게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고서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줬냐고 하며 낙심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은 늘 도우신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선포하시어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시며 도우신다. 하나님은 늘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살아라.” 말씀하시며 가르쳐 줬는데, 자기가 그 말씀대로 안 해서 당하게 된 것이다. <행한 자>는 힘들어도 행하여 안 당했다.

79. 배워도 잊으니, 가르쳐 줄 때는 그 본인이 행하게 하면서 ‘다 할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다 할 수 있게 되면, ‘잘 쓸 수 있게’ 또 가르쳐 줘야 된다.

80. <인간의 뇌>는 배워도 그때만 안다. 밥 한 번 먹듯 쉽게 끝내는 그런 교육이 아니니,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81. <가르쳐 줄 때>는 본인이 ‘행하게’ 가르쳐 주고, 행했으면 ‘쓰면서’ 보람을 누리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

82. 지도자나 관리자도 자기를 가르쳐 주지만, 매일 잊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라. 이것이 ‘최고의 가르침의 방법’이다.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생각>과 맞으면 통하고, 안 맞으면 안 통한다.
2.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과 사람도 맞으면 통하고, 안 맞으면 안 통한다.
3. 모든 생명체들도 모양과 형상에 상관없이 맞으면 통하고, 안 맞으면 안 통한다. 이와 같이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과 ‘생각’이 맞으면 통하고, 안 맞으면 안 통한다.
4. <언어>도 맞으면 통하고, 안 맞으면 알아듣지 못하니 안 통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언어’가 맞으면 통한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는 마치 자기가 자기 민족의 언어를 알듯 다 아신다.
5. 삼위일체가 <자기 생각을 전하실 때>는 ‘말’로만 통하지 않고 ‘만물’이나 ‘각종 사물’로도 통한다. 만물이나 사물이 없어도 ‘생각’으로 통한다.
6. 하나님과 인간은 항상 ‘생각의 차이’가 있다.
7. <생각>을 먼저 맞춰야 ‘대화’가 된다.
8. <물>끼리는 서로 ‘같은 질’이니, 하나로 일체 된다.
9. <물>과 <돌>은 일체가 안 된다. 서로 질이 같아야 일체 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같아야 일체 된다. 그때 대화하면 통하게 된다.
10. <생각>은 육체같이 형체가 없으니, ‘형체가 있는 육체’와 일체 되어 행하면, ‘생각’이 ‘실체’를 이루게 된다.
11. <생각> 따로, <육체> 따로 놀면, 생각은 ‘실체’를 못 만들어 낸다.
12. <전기>와 <전깃줄>이 같이 존재해야 ‘전기의 기능’을 실제로 발휘한다.
13. <전기> 따로, <전깃줄> 따로 놀면, 쓸 수가 없다.
14. <전파>와 <전파로 인해 작동하는 TV, 전화기와 같은 실존체>가 따로 놀면, ‘실체’를 이루지 못한다.<사람의 생각>도 ‘육체’와 그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도 그러하다.
15. <생각>이 ‘생명체’다.
16.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
17. <자기 육신>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종일 가만히 있으면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도, <육신>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18.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사람같이 ‘생각’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영의 몸’도 있으시다. 고로 생각과 몸이 하나 되어 행하신다.
19. 사람이 육체를 가만히 놓고 ‘생각’이 육체 통해 어떤 것을 지시하면 행하여 이뤄진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도 ‘영체의 입’을 통해 ‘생각’을 말씀하시면, 그 말이 가는 곳에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
21. <생각>을 ‘말’로 보내어 ‘영의 몸’을 통해 실제로 이루신다.

22. <사람의 육신>은 유전자가 담긴 ‘인간의 씨’가 태 속에서 커서 만들어진다. <영체>도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 다만 <육>은 ‘물질’로 이루어지고, <영>은 ‘영적인 것’으로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23. <영원한 존재체>인 ‘영’은 ‘영원한 것’과 일체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24. <영원한 존재체>인 ‘영체’는 인간의 육체가 형성되는 물질의 결합이 아닌,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씨’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의 씨’가 결합되어 형성된다.
25. <육체>는 물질세계의 최고 생명의 핵인 ‘정자’와 ‘난자’가 서로 상대적인 존재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영>도 최고 생명의 핵인 ‘삼위의 생각’과 ‘인간의 최고 핵인 생각’이 서로 상대적인 존재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26. <인간의 육>은 정자 자체로만, 혹은 난자 자체로만 생명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대적인 생명 물질’과 하나 되어 생명체가 이루어진다.이같이 <영>도 그러하다. <인간>에게 최고의 생명과 같은 ‘생각 덩이’와 <삼위>께 속한 ‘생각 유전자’가 일체 되어 마치 난자와 정자가 일체 되어 육신이 이루어지듯 ‘영의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27. 인간에게 있어서 ‘영에 속한 핵과 같은 생명체인 생각의 씨’와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명의 씨’가 일체 되어 ‘영원한 생명체, 영’이 탄생된다.
28. <인간의 육신>은 ‘같은 질’이면서도 서로 ‘상대적인 핵’끼리 결합되어 만들어지듯이, <인간의 영체>도 ‘하나님의 핵, 생각’과 ‘인간의 핵, 생각’이 ‘같은 질’이면서도 서로 ‘상대적인 핵’으로서 일체 되어 만들어진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에 간단하게 기록하기를 “인간을 창조하였다.” 하셨다.하나님은 <육>을 창조하시고, <영>도 창조하셨다.
29. <육신>은 태 안에서 ‘같은 질’을 가진 ‘고단백의 영양 물질’을 먹으면서 성장한다. 마치 식물이 ‘같은 질’의 퇴비를 영양분으로 삼고 성장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영>도 ‘같은 질’을 가진 ‘고단백의 영양분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다. 그리고 <인간의 육>이 ‘고단백의 영양분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생각과 일체 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음식 먹듯 의를 행하면, 영이 성장한다. <생각>이 영양분이 되어 ‘영’을 성장시킨다. 모든 이치와 공식은 같다.
30. <하나님의 핵, 생각>과 <인간의 최고 핵, 생각>이 일체 되어 ‘영의 생명체’가 탄생된다.
31. <영원한 것>으로 ‘영’이 만들어져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2. <영원한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에 의해 ‘영’이 창조되어 영원히 존재한다.
33. 세상에서 집을 짓거나 어떤 존재물을 만들 때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오래가기도 하고 금방 없어지기도 한다. 어떤 것은 땅에서 영원히 존재한다고까지 말한다.
34. 가령 ‘다이아몬드’ 두 덩이를 서로 일체 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수백억 년 이상 간다. 그러나 ‘나무나 음식’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 기간의 수명이 다하면 없어진다. <물질>로 만들어진 ‘육’은 100년의 기간 정도 가면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영에 속한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영체’는 그 자료가 영원한 것이라 영원히 간다. 만일 <하나님의 핵, 생각>과 <인간 육체의 정자나 난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영체라고 한다면, 마치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몸을 붙여 놓은 것과 같아서 육체가 100년이 가면 썩어 존재하지 못하듯 그 영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한다.
35. <영원한 생명체>가 ‘영원한 생명체’를 만들어 놓는다.
36.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어 만들어졌으니, ‘생각’이 같아야 된다.

37. <하나님의 생각>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그 영이 육과 같이 성장이 잘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영을 닮아 빛이 나고, ‘같은 질’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영원히 천국에서 삼위와 함께 살게 된다.

38. <인간의 생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본심’이 같다.

39.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신의 질인 ‘영체’로 인간의 본질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은 삼위와 최고로 잘 맞는다. 같은 질이며, 같은 생각이다.

40. <인간의 육체>는 ‘아버지의 생명의 씨’와 ‘어머니의 생명의 씨’가 결합되어 ‘어머니의 태’에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탄생된다. 인간 육체의 탄생과 같이 영체도 그러하다. ‘성부 하나님’과 ‘천모 성령님’이 함께 탄생시키고, ‘성령의 핵, 생각의 태’에서 성장시켜 태어나게 하신다.

41. <인간의 육체>는 ‘어머니의 태반’에서 성장시켜 태어나고, <영체>는 ‘영의 어머니, 성령의 태반’을 통해 성장하여 태어난다. 태어나면, ‘육’을 기반으로 하여 ‘영’이 살아간다. 다만 <영의 어머니>는 ‘천모 성령님’이 되고, <육의 어머니>는 ‘자기 육을 낳은 어머니’가 된다.

42. <육신>은 늙어 변하고 존재하다 없어지니, 허무하다. 그러나 <영체>는 마치 다이아몬드가 완성되어 존재하듯, 지구가 완성되어 존재하듯, 없어지지 않는다. 고로 허무하지 않다.

43. 자기가 사랑하던 자가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여 본래 모습이 없어지면, 허무하고 허망하다. 과거의 희망도, 생각도 없어진다.

44. <영>은 늙지 않는다. 마치 젊었을 때 자기 최고의 모습을 금덩이로 만들어 놓은 것같이 그대로 있다.

45. <영>은 마치 자기가 젊었을 때 그때의 얼굴과 몸을 화면으로 찍어 놓고 보는 것과 같아서 100년이 가나, 1000년이 가나 똑같은 모습 그대로 있다.

46. <영>은 최고로 성장하고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멈춰 있다. <과일나무>도 성장해서 최고로 다 커서 ‘열매’를 맺으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그 모습으로 멈추듯이, <영>도 그 모양과 형상과 생각이 완성되면, 최고 극치에서 더 늙거나 변하지 않는다. 자기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장하면서 더욱 ‘아름다움의 빛’을 내며 산다.

<2017년 9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인 것’을 만든다.

2. 절대적으로 행하면, 절대적으로 된다. 가령 음식도 절대적으로 안 먹으면, 그로 인해 절대적으로 위장은 비게 된다.

3. <절대적>으로 해라. <한 기간>을 두고 감행해야 효력이 있다.

4. <지속적>으로 해야 변화된다.

5. 1년 365일 끊이지 않고 하기다.

6. 기간을 정해 놓고 여러 번 끊이지 않고 하기다.

7. <몸 관리, 건강관리>도 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변화되어 자기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유지된다.

8. 생각도, 행함도 존재할 때까지 존재한다.

9.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했어도 ‘할 때 마음’과 ‘하고 난 후 마음’은 다르다.

10. <도둑질을 하는 자>가 ‘할 때’는 자기가 원해서 했어도 ‘하고 난 후’에는 생각도, 마음도, 상황도 달라진다. 그때는 쫓기는 신세가 되니, 처음 마음도 꺾이고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11. 자기를 미워하거나 혹은 배신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죄를 지었다.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도, ‘하고 난 후’에는 안 했을 때와는 상황도, 마음도 다르다.

12. 자기가 원해서 했어도, ‘불의’는 하고난 후에는 안 했을 때와는 상황도, 그 마음도 다르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 ‘대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3. <의를 행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면 할수록 더 좋게 상황이 달라진다.

14. <악과 불의한 쪽>은 자기가 원해서 했어도, 하고 난 후에는 안 했을 때와 다르게 ‘그 죄의 대가’를 받아 ‘악한 쪽’으로 상황이 달라지고, <선과 의로운 쪽>은 자기가 원해서 하면 할수록 안 했을 때와 다르게 ‘선한 쪽’으로 더 좋게 상황이 달라진다.

15. <의로운 쪽>은 힘들어도 하면, 안 했을 때와 다르게 더 좋게 상황이 달라진다.

16. 어떤 일이든 그 일에 ‘믿음의 조건’을 세워 놓으면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합당한 칭찬’을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모두 절대 믿음을 세우고 지켜라.

17. <믿음>은 마치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 준 것’과 같아서 그것이 존재하는 한 늘 보면서 좋아 기뻐하듯, 믿음도 무너지지 않는 한 그로 인해 늘 얻고 기뻐 누리게 된다. 모두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들어라.

18.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를 믿고, 그의 행함을 절대 믿고 따르면, 그 역시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19. <주가 하는 일>을 자기도 같이 좋아서 행하여라. 좋아서 하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로 인해 절대 행하게 된다.

20.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백지장만큼이라도 있으면, 믿고 행하게 된다.

21. 억지로 믿지 말고, 좋아서 믿어라. 그러면 좋으니 행하게 된다.

22. <안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자기가 좋아하며 믿게 된다.

23.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현재는 유익함이 적고, 해가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과일나무가 커서 열매를 맺듯 상황이 뒤바뀌고 달라진다.

24. <행악자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원해서 악평하고 막았어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고, 주가 받은 해(害)의 백 배, 천 배로 해를 받는다. 이미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사망에 거하는 영이 되어 살기도 한다.

25. <현재>는 시대가 이러해도, <장래>에는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알아라.<현재>는 ‘악의 세대’라서 악한 자들이 좋아서 악을 행하고 있어도, <장래>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해 ‘선의 세계’가 온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한 심판’으로 영원히 멸함을 받고 사탄도 영원히 옥에 갇힘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26. 추울 때는 더운 때를 원하고, 가다 보면 또 춥기를 원하는 더운 때가 온다. 때가 되면 계절이 오듯, 이같이 ‘선의

날'이 온다. 결국 역사의 추웠던 때는 멀하고 영원히 사라지는 날이 오리니, 그때가 오면 추웠던 날을 생각하나 다시 오지 않는다. <계절>은 반복되나, '하나님의 때'는 한번 돌아가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의 때>가 한번 돌아가면, '악'은 끝나고, '선'만 지속된다.

27. 전에 이 시대와 복음을 불신하고 미워하던 자들은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망의 영'으로 영원히 사라졌다. 그 후손들도 그들처럼 또 '악'을 행하나, 그들처럼 똑같이 '사망의 영'이 되어 사라진다. <그리스도>는 '남은 악과 사탄을 멸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러 왔다.

28.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선 편에서 의인들이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악인들>은 도둑질하는 자와 같이 훔쳐서 자기들이 가지고 행하니 그 행함은 모두 '악'이며, '불법'이다. <주인>은 자기 것으로 행하니, '악'이 아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것'으로 행하니, '의'다.

29.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무지와 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두 따랐던 역사가 없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30. 이 세상의 어떤 일을 해도 한 나라의 온 백성이 다 따라갈 수가 없다. 자기가 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좋아도 몰라서 못 따라오기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거나 자기가 살던 삶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못 따라오기도 한다. 고로 <시대의 택한 자>만 처음부터 새 역사를 받아들이고 따르게 된다.

31. <예수님 때>도 대신 십자가를 져 주고 육신을 내주었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만 명에 한 명 정도 따랐다. 그 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많은 자들이 따르게 되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0만 명에 한 명, 만 명에 한 명, 천 명에 한 명 정도의 비율로 새 역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이는 마치 세상의 그 많은 자들 중에서 '자기와 사랑하며 같이 살 애인 한 명'을 택해서 사는 격이다. 고로 먼저 시대의 택한 자들과 사랑의 뜻을 이루고, 그 후손들도 성장하면서 점점 많은 자들이 그 뜻을 이루게 된다.

32. 잔칫집에 다 초청할 수도 없고, 다 올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이 시대 역사>도 그러하다.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구상>을 잘해야 '대(大)결작'이 된다.
2. <자료>를 가지고 '구상'을 잘해야 안 될 작품도 결작이 된다.
3. <표현>을 잘해야 '말의 작품'이 된다.
4. <자료>가 무엇이든지 '요리'를 잘하면 진수성찬이 되듯이 '구상과 표현'을 잘하면 결작이 된다.
5. 극으로 아주 잘하면, 극으로 아주 잘된다.
6. 처음에 볼 때는 별 희망이 없어도, 잘하다 보면 잘되고 거기서 또 잘하다 보면 아주 잘된다.
7. 더 생각하고, 더 행하는 것이 '비법'이다.
8. <표현>을 잘하면, '짧은 말'로도 전달이 다 된다.
9. <표현의 구상>을 잘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말의 작품'도 나오고 '말의 실체'도 창조된다.
10. <글을 쓸 때>도 잘 써야 제대로 알아보고 "멋진 글이다." 하고 깨닫고 안다.

11. <시를 쓸 때>도 ‘표현’을 잘해야 아름답고 멋진 ‘시의 걸작’을 낳는다.
12.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도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알아듣게 ‘표현’을 잘해야 권위도 있고, 귀하고 중하게 듣고 행한다.
13. 어렵게 표현하면, 아무리 중요한 말도 무용지물이다.
14.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표현’을 잘해야 안 들어줄 것도 들어주신다.
15. <표현>을 잘해야 ‘상대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
16. <표현>을 잘해야 성령과 ‘대화’도 한다.
17. <표현>을 잘하려면, 입에서 요리해서 내보내라.
18. <표현>을 잘하려면, 한꺼번에 조립해서 짧게 내보내는 것이다.
19. 무엇이든지 표현을 잘해야 멋있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듯이, <삶>도 ‘생활의 행실’로 표현을 잘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이루어진다.
20. <불의를 음모하는 자들>은 ‘괴이한 표현과 유혹하는 표현’을 써서 거짓되게 말하니, 마치 버린 하수도 물이 다시 거슬러 올라오는 것같이 눈에 거슬리고 귀에 거슬린다.
21. <본문>만 가지고는 표현이 제대로 안 되니 ‘비유’를 들어 첨단으로 결합시켜 설명해야 들을 때 닭살도 돋고, 쇠망치로 뇌를 맞은 것 같은 충격도 받고, 기쁘고, 흥분도 된다.
22.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표현’을 첨단으로 잘해서 전해 줘야 쇠망치로 골을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듯 사랑도 기쁨도 흥분도 일어난다.
23. <운동 경기를 할 때>도 ‘희열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청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열광하게 한다.
24. <산을 오를 때>도 점점 가다 보면 각종 모양과 형상을 갖췄든지, 절벽이든지, 기묘하게 생겼든지 그중에 ‘비경’이 있다. 그 ‘비경’이 보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감탄하며 소리 지르게 하고, 기쁨과 격한 감동을 느끼게 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을 느끼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
25. <작품의 정점>을 이루는 ‘화룡점정’같이, ‘비경’이 어떠냐에 따라 전체가 빛난다.
26. <사람>도 ‘비경’을 이루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체가 빛난다.
27. <글>이나 <그림>도 ‘비경’을 이루는 곳이 있어야 된다.
28. <월명동>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하나님의 궁’이니, ‘비경’이 많다.
29. <표현>을 잘하면, 시인도 되고 말의 달인도 되고 명강사도 되고 명설교자도 된다.
30. <사냥>을 잘해야 ‘사냥감’을 잡듯이, <표현>을 잘해야 ‘듣는 자들의 마음’을 잡는다.
31. 성령님은 “표현을 잘해라.”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표현>이 너무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은 말로 인생을 살아간다. <말>은 ‘자기 생각의 표현’이다.” 하셨다.

32. <표현을 잘하는 것>은 ‘존재물이 생긴 그대로’를 ‘침단’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33. <생긴 것>의 선(線)을 넘어서 표현하면, ‘선을 넘은 표현’이라 외람되고, 말과 실재가 다르니 거짓이 되고, 감동도 기쁨도 감소된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관한 표현>은 아무리 넘치게 해도 과하지 않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표현’을 잘하면, ‘화답’이 온다.그러나 ‘표현’을 못하면, 파장이 안 맞아서 옆에 계셔도 대답이 없으시다.
36. 사람도 마음에 안 맞는 말을 하면, 대답을 안 한다.
37. 메시아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직 택한 그입니까?” 하니, 그제야 맞으니 “그러하다.” 하셨다.
38. <입력 번호>가 맞아야 ‘기계’에 불이 들어오면서 컵이 나오고, 원하는 음료수가 나와서 마신다. 하나님 앞에도 맞으면 대화도 되고, 받을 것을 받게 된다.
3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되어라.
40. 너는 ‘0’이고, 나는 ‘10’이다. 일체 되면, ‘100’이다.
41. 너는 ‘그릇’이고, 나는 ‘보화’다. 담으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42. <월명동>은 ‘그릇’이다. 거기에 ‘돌, 바위, 나무, 호수, 폭포’ 등을 담고 ‘시대 사람들’을 담으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되었다.
43. 하나님이 <시대의 보화>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찾는데, ‘깨끗한 그릇’이 없다. 모두 씻고 빛나게 하면, 넣는다.
44. 잘하니, 이루어지게 되었다.
45. 잘 못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데도 안 되었다.
46. 잘하니, 간단했다.
47. 잘하려면, ‘생각할 때’부터 생각을 잘하고, ‘행할 때’ 섬세히 해야 된다.
48. <글>을 한 자라도 잘 쓰려면 ‘구상’을 잘하고, 그 구상대로 섬세하게 움직여서 써야 된다.
49. <생각>에서 ‘구상’을 잘하고, 그것을 ‘그대로 잘 쓰기’다.
50. <말의 표현>을 잘하려면, ‘분명히 알기’다. ‘표 나게 말하고, 이해되게 말하기’다.
51. 섬세하고 자세하게 초상화를 그리듯 하기다.
52. 생활의 <행위의 표현>이다.
53. <운동할 때>도 ‘운동하는 그 행위의 표현’을 잘해야 한다. 그래야 실전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

54. <실체>는 ‘황금’인데, 표현을 잘못해서 거의 ‘은’으로 알고 있다. 섭리사도,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다.

55. 간단히 조리 있게 표현해야 상대가 쉽게 안다.

56. 설명이 길면, ‘표현의 핵과 목적’을 모른다. 무엇이 ‘비경’인지 모른다.

57. <표현>을 잘하면, ‘생각’에서 그 현상이 실감 나게 보이듯 한다.

58. <말>은 표현에 따라 ‘땅’에 닿기도 하고, ‘하늘’에 닿기도 하다.

59. 어떤 자는 절벽에 서서 구경하다가 “내 몸이 절벽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약간 기운 것 같기도 해.” 하고 말하니까, 옆에 있던 자가 “조심해.” 하고 말해 줬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안 이미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었다. 절벽으로 몸이 기울어지는데도 ‘표현’을 제대로 못 해서 죽은 것이다. 또 어떤 자는 절벽에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는데 “나 넘어가! 빨리 잡아!” 하니, 순간 옆에 있던 자가 잡았다. 확실하게 ‘표현’하니 산 것이다. <표현>을 잘해서 살고, 못해서 구경거리가 되어 사라졌다.

60. 어떤 자는 “잘 있냐?” 하고 물으니, “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냥 두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에게 물으니, “힘들다. 숨이 잘 안 쉬어진다.” 해서 끌어냈더니 살았다.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해라. <표현>을 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61. 메시아가 생명을 구하러 가는데 아픈 자들이 살려 달라고 애타게 말하니, 즉시 멈춰서 그들을 고쳐 줬다. 만일 한번의 기회인데 “견딜 만해요. 많이 안 아파요.” 하면, 주는 “열심히 해라.” 하고 가신다.

62. <표현>은 표 나게 해라.

63. <표현>은 ‘표적지’를 보고 활을 쏘듯, 총을 쏘듯 확실하게 하여라.

64. <표현할 때>는 ‘넣을 것’을 같이 넣고 해라.

65. <표현>은 결합시켜서 ‘끼워 넣는 것’과 같다. 거기에 해당되는 합당한 말을 귀에 끼워 넣어야 된다.

66. <표현>은 마치 여러 가지 능선 중에서 ‘최고의 능선’을 찾아서 걷는 것과 같다.

67. <최첨단의 표현>은 ‘산의 능선 길’과 같아서 쉽고, 듣는 자도 편히 듣는다.

68. <노래>도 ‘능선 길’과 같다.

69. <악>은 ‘선’과 겨루고 극성을 부리나, 결국은 남은 시간 다 성공한다 해도 큰 차이로 패한다. 이 모든 결과의 비밀을 알고 말한다.

70. <악>과 겨루는 시간이 너무도 길어서 피곤하지만, 어차피 ‘선’이 이기는 싸움이다.

71. <선>은 하면, 이긴다.

72. <악>은 패할 것을 알면서도 악을 쓰고 행한다.

73. <악>은 악을 쓰고 행하고, <선>은 선전하고 증거하며 이길 것을 알고 행한다.

74.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선>에게 예정된 승리여도 사탄이 싸워 보지도 않고 그 승리를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하시

며, 사탄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악평자들에게도 ‘마지막 유언의 기회’를 주신다.

75. 이긴 경기를 녹화해서 다시 보여 주는 격이다. 그래도 사탄과 악인들은 자기가 이긴다고 하며 소리치니 속지 말아라. 이때가 끝나기 전에 그들의 등에 쓰레기를 다 얹어서 보내라. 쓰레기를 한 짐 얹고 가니, 그 위에 더 얹어도 모른다.

76. 한 눈으로는 ‘악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 눈으로는 ‘선이 흥하는 것’을 보아라. 그러면 더 ‘선 편’이 웅장함을 느끼고, 그 가치를 깨닫고 안다.

77. <선>은 ‘악’이 없어져야 선의 보람을 느끼고, <악>은 ‘선’이 없어져야 그 보람을 느낀다.

78. 겨루고 다투는 이유는 자기가 이겨서 모두 없애고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 살려는 야심찬 생각 때문이다.

79. 이 말씀을 쓰는 날 꿈에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8명 정도 나와서 나와 축구 경기를 했다. 나는 비호(飛虎)같이 뛰며 경기를 했다. 경기 시간이 긴 경기였는데, 그 결과가 은밀히 깨달아지기를 ‘경기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결과는 내가 10골을 더 넣어서 크게 이기겠다.’ 하고 꿈에서 깼다. 그리고 이 잠언을 새벽부터 현재 7시까지 썼다. 사탄 편과 싸워서 말씀을 받고 이긴 것이다. 시간은 길었지만, 끝내 이겼다 함이다.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영원한 영>을 안 만들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2. 감사해야 ‘감사할 내용’을 찾게 된다.
3. 감사해야 ‘감사의 세계’를 찾게 된다.
4. 감사해야 ‘감사의 인봉’을 떼다.
5. 감사 생활을 해야 ‘감사의 인봉’을 떼다.
6.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의 인봉’을 떼다.
7. <사랑의 인봉>은 ‘휴거’다. <휴거>는 ‘사랑’으로 되기 때문이다.
8. 잠언을 써야 ‘잠언의 인봉’을 떼다.
9. 인봉을 떼면 ‘그 세계’를 만난다.
10. 가령 바다에 대한 인봉을 떼 자는 ‘바다’를 만난다.
11. 인봉을 떼면, ‘그 세계’를 알게 된다.
12. <사랑의 인봉>을 떼면, ‘사랑의 세계’를 안다.
13. <말씀의 인봉>을 떼면, ‘말씀’을 안다.
14. <월명동의 인봉>을 떼면, ‘월명동의 비밀’을 안다.
15. <인봉을 떼 자>는 ‘그 세계’를 안다.

16. 하나님은 ‘인봉’해 놓으셨다.<그 인봉을 떼 자>가 알고 행하여 ‘뜻’을 이룬다.
17. <메시아>는 ‘그 시대 인봉의 주인’이다. 고로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니, 가면서 모든 것들의 인봉을 떼다.
18. <그가 가는 노정>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가는 길이니, 인봉한 것이 다 밝혀진다.
19. <메시아>만 ‘휴거 인봉’을 떼서 이룬다.
20. <메시아의 몸 자체>가 ‘인봉의 키’다. 고로 그가 살아가면서 그 시대 인봉을 모두 푼다.
21. 메시아만 성경을 이룬다.
22. <여자>만 ‘여자에 대해 예언한 것’을 이루듯이, <메시아>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경의 인봉’을 풀어 간다.
23. <메시아>만 아니,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 간다.
24. <메시아>가 오면, 그가 ‘신약 때 예언하고 약속한 내용의 주인’이라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다 이룬다.
25. <메시아>는 땅의 ‘하나님의 표상’이라서 다 연관되어 있다.
26.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세상의 각 종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다. 그가 오면, 그 예언을 다 이룬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이기에 그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한다.
27. 세상의 각종 종교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자기 주관대로, 그 종교의 교리대로 표현하였다.고로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온다.’ 하고, <유교>에서는 ‘신공자가 온다.’ 하고, <도교 쪽의 비결(秘訣),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 온다.’ 하고 예언하고 가르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한다.이 모두가 하나님이 ‘한 뜻’을 두고 각 종교대로 그 종교의 핵으로 표현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신다.
28.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지 못했듯이, 각 종교들도 그들의 교리대로 ‘자기들이 믿는 자가 다시 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펴도 모른다.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않듯, 불교나 유교나 도교에서 그들이 믿는 식으로는 안 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역사’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모든 종교에서 예언한 것을 다 이루신다.
29. <메시아>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이며, ‘유교에서 말하는 신공자’이며, ‘정감록에서 말하는 정도령’이다. 세상의 각 종교의 교리대로 ‘미륵불이 온다, 신공자가 온다, 정도령이 온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온다.’ 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 새 역사’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30. <구 역사>는 ‘구 역사’에서 끝나고, <새 역사>는 ‘새 역사’에서 천 년 동안 펴 나간다.
31. <구 역사>도, <이방 종교>도 인봉은 못 떼다. 오직 <새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역사를 펴면서 인봉을 다 떼 나간다. 인봉을 떼서 실천하며 역사를 이루어 놓는다.<메시아 자체>가 ‘인봉의 답’이다.
32. <메시아>가 안 오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안 이루어진다. <성경을 이루는 자>가 ‘메시아’다.
33.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지 않으면 못 이룬다.

34.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주인이 아니니, 봉합하라.” 하셨다. 결국 주인인 메시아가 와서 그 인봉을 뗐다.

35. <무식한 자>는 모르니, 그들은 나름대로 ‘무식’을 낙으로 삼고 산다.

36.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경의 인봉을 못 떼서 애타하며 우니, 메시아가 성경의 인봉을 떼고 이루니 울지 말라고 하였다(계 5:1-5).

<2017년 9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은 ‘생각의 낙’이다. ‘행함의 낙’이다.

2. <일>을 안 하면 ‘일의 낙’이 없듯,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의 낙, 마음의 낙’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면, 지겹고 권태가 오기도 한다.

3. 잘 때 ‘희망의 꿈’을 못 꾸었어도, 생시에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찾으면 된다.

4. <꿈>에도 자기 혼이나 영이 ‘희망’을 찾아다닌다. 못 찾았으면, 생시에 ‘생각’으로 찾고 ‘행함’으로 찾아라.

5. 어느 날은 ‘희망’을 찾은 꿈을 꾴서, 이를 두고 기도하여 무엇인지 찾았는데 특별한 것이 없었다. <꿈>에서 ‘혼’으로 찾을 것이 있고, <생시>에 ‘생각’으로 찾을 것이 있고, ‘육으로 실천’하여 찾을 것이 있다.

6. <생각>이 ‘육’과 같이 일을 하며 ‘생각’으로 찾으니 말씀도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

7. <생각>에서 찾고 행하면서 ‘할 일’도 찾고, ‘삶의 보화’도 찾는 것이다.

8.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 시간은 무(無)가 되어 사라진다.

9. <생각>하지 않고 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니, 가만히 숨이나 쉬고 음식이나 먹고 화장실에나 가며 산다. 고로 이런 자는 ‘생명만 유지하며 사는 자’다.

10. <사람의 생각>은 ‘신경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11. <뇌의 신경>에서 ‘생각’이 발생한다. 다른 지체의 신경에서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뇌>에서만 ‘생각’이 발생한다.

12. 눈이나, 귀나, 다른 지체에서 접했어도 ‘뇌 신경’을 거쳐야 생각이 일어난다.

13. 하나님은 ‘생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생각이 발생되지 않고 ‘뇌 신경의 작용’으로 생각이 일어나도록 창조하셨다. <다른 지체의 신경>은 마치 마이너스 전기선 하나와 같은 입장이라서 혼자서는 작용하지 못한다. 오직 <뇌의 신경>만 마이너스 전기선과 플러스 전기선이 모두 있는 것과 같아서, 둘이 하나 되어 불이 켜지는 작용이 일어나듯 신경 작용이 일어나서 ‘생각’이 발생한다. 하나님은 이를 깨우쳐 주셨다.

14. 하나님은 <뇌의 신경>에서 ‘생각’이 일어나도록 창조하시고, 혼과 영도 만들어지게 창조하셨다.

15. 하나님은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도록 온갖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제야 인간을 창조하여 살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뇌’와 ‘생각’을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고, ‘혼’과 ‘영’을 창조하셨다.

16. <인간의 육신>이 창조되지 않으면, ‘혼’도 ‘영’도 창조가 안 된다.

17. 인간은 ‘육신’을 통해서 ‘혼’과 ‘영’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육신 없이 창조된 천사나 천인들과 다른 점이다.

18. 본래 하늘나라는 육신이 없는 ‘영의 세계’다. 고로 천사와 천인들은 육신 없이 영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육신 없이 만들어진 영’과 ‘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을 창조하셨다. 이를 위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신으로부터 혼도 영도 만들어지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육신을 위해 생각도 창조하셨다.

19.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을 창조하셨겠느냐.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와 천인들의 숫자가 상상할 수 없이 많은데, 왜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육’을 창조하셨겠느냐. <육신>은 창조했어도 살다 죽으니 결국은 무(無)다. 고로 하나님은 ‘육’만 위해 창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을 위해 ‘육’을 창조하셨다. <육>을 통해 ‘영’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히 사랑하며 같이 살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이를 비유하면, 자기 식구끼리는 한 혈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적 사랑’은 하지 못하고, 혈통의 관계가 아닌 다른 자들 중에서 찾아서 그를 ‘상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같이 하나님은 한 혈통적 관계인 천사와 천인들이 아닌, ‘인간의 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을 ‘상대적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어 그와 영원히 ‘짝’이 되어 살고자 하셨다.

20. 사람도 ‘자기 육이나, 자신에게 속한 것’에서 오는 기쁨과 희망이 있고, ‘상대나 상대에게 속한 것’에서 오는 기쁨과 희망이 있다. 서로 수백, 수만 가지가 다르게 느껴져 온다. 고로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창조된 영들’에게서 오는 기쁨과 사랑 외에, 다른 상대에게서 오는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인간의 육’을 창조하시고, ‘영’을 창조하셨다. 상대적인 입장인 ‘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에게서 오는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자 하셨다.

21.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삼위의 사랑의 대상’을 목적하고 ‘인간의 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이다. 인간도 이 목적을 이루고 <육>도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영>도 영의 세계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 최고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이 온다.

22.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어도,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야 그 육도 영도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점진적으로 종교 역사를 펴 오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못 하면 또 다음 사람이 하게 하시면서, ‘사랑의 목적’을 두고 육도 영도 ‘최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역사해 오셨다. 마치 어린아이를 성장시켜서 때가 되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와 결혼하듯이, 하나님도 지구 세상 구원역사 7000년 전체를 한 일생으로 보시고 역사해 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맨 마지막 성약역사 때 보낸 구원자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행하시고서야 모든 것을 다 밝히셨다.

23. 하나님은 인간의 육도 영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고 형성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목적하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24. 농부가 농사짓고 추수하듯, 과수원지기가 과일 농사를 다 짓고 열매를 따듯,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 때 메시아를 보내어 그를 통해 당세에 ‘휴거’로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 역사를 천 년 동안 펴 나간다.

25. 하나님은 인간의 육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따라 행하는 대로 그 혼도 영도 절대적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도록 목적을 두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때가 되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셨다. 이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육으로 삼고 진행 중이다.

26. <육>은 죽고 끝나니,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육’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그로 인해 ‘영’도 성장하고 완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 황금성’으로 휴거되어야 한다. <휴거의 영>은 ‘최고 단계의 영’이다.

27. <사랑하는 자>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랑의 말과 대화’를 하듯, <휴거의 영>이 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능자 하나님의 휴거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고로 하나님은 ‘휴거 말씀’을 메시아에게 주시어, 그 말씀을 듣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하는 자는 ‘휴거의 영’이 되게 하셨다.

28. 세상에서도 일반 사람들끼리 하는 말과 대화가 있고, 친구끼리 하는 말과 대화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말과 대화가 있다. <말과 대화의 차원>이 다 다르다. 이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도 ‘대상의 차원과 급’이 각종으로 구분된다. 곧 구약 ‘종급’ 차원, 신약 ‘자녀급’ 차원, 성약 ‘신부급’ 차원이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이 시대 ‘신부가 되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시대마다, 대상에 따라, 말씀이 다르다.

29. <종>에 해당되어 믿고 사는 자가 있고, <자녀>같이 대함을 받고 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랑의 대상’으로 자기 육도 영도 만들어서 ‘사랑의 상대’로서 대함을 받고 사는 자들이 있다.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이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기 육과 영을 만들어야 된다.

30. 세상에서도 하나의 ‘일반 사람’으로 보통으로 대하기도 하고, ‘형제’ 같이 지내기도 하고,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지내기도 한다.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종 차원’으로 대하고 역사를 펴시고, <신약 2000년> 동안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에게 ‘자녀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을 ‘자녀 차원’으로 대하고 역사를 펴셨다. <성약> 때는 마지막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에게 ‘신부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른 자들을 ‘신부’로 대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1000년 동안 역사를 펴 나가신다.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31. 사람도 처음에는 남같이 대하다가, 그리고 한 형제처럼 대하다가, 후에는 애인처럼 대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간다.

32. 과수원지기가 과일 농사를 짓는 목적은 ‘과일 열매’를 먹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하지 않고 과일나무만 가꾸고 키우다가 버리는 재미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의 영이 ‘영원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을 목적하고 창조하셨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33.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매일 대화하며,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결혼한 자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 보아라. <자기 육>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혼>도, <영>도 ‘사랑의 대상’이 된다. <육>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지 않으면, 그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형성이 안 된다.

34. 땅에서 육신이 살 때, 자기 육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았는지, ‘자녀 입장’으로 살았는지, ‘종 입장’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영의 차원과 급’이 결정된다.

35. 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결정되면, 그 성별대로 평생 살아간다. 이같이 ‘지구’는 ‘태’와 같아서, 세상에서 자기 육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았는지, ‘자녀 입장’으로 살았는지, ‘종 입장’으로 살았는지에 따라 영원한 ‘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36. 영의 세계에 가서 안 봐도, 육계에서 보면 다 안다. 지금은 자기 혼과 영이 가서 확인하고 아는 때다.

37. <자녀>같이 대함을 받고, 자녀 차원에서 행하며 사는 것은 쉽다. 차원이 낮기 때문이다. <신부, 사랑의 대상>으로 행하며 사는 것은 어렵다. 차원이 높고, ‘사랑의 대상’이니 그에 맞는 최고 높은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38. 보통으로 운동하는 것은 쉽지만, 국가 대표 선수처럼 운동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그만큼 그 영광이 크고 높다.

39. 자기가 행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고로 최고 차원으로 행하여 최고의 것을 영원히 얻고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 자는 ‘최고의 선택’을 한 자이다.

40. 하는 자만 안다. 안 하는 자는 생각도 못 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최고의 구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목적’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만족하여 행하신다.
2. 황태자가 자기 신분과 자기가 온 목적을 감추고 온 민족을 다니며 ‘자기 목적’을 이뤄 줄 자를 찾는다 하자. 황태자는 자기 목적을 이뤄 주는 자를 찾아서 그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데려간다. 그 목적을 이뤄 주지 못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으로만 대해 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보낸 자를 통해 시대를 은밀히 밝히시고, ‘사랑의 목적’을 두고 뜻을 펼친다. 고로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신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면, 그 행위대로 그 욕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영도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되어 완성되는 대로 천국 황금성으로 휴거되어 간다. <휴거 문>이 열리고 천 년 혼인 잔치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3.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욕으로 쓰는 자’를 통해 하시고,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다.
4. <사랑>은 혼자만으로는 안 이뤄진다. ‘둘’이 같이 이뤄야 된다.
5.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루어진다.
6. 금덩이 두 개가 있다 하자.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자신이다. 하나님 것은 녹았는데, 자기 것은 안 녹으면 둘이 하나가 안 된다. 두 개 다 녹아야 한 덩이가 되어 ‘사랑 작품, 사랑 형상’이 이루어진다.
7. 가령 왼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오른손은 그 손을 감싸고 있다 하자. 자기 손이라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있고, 한 손은 껴안고 있으니 서로 감각도 다르고, 아무리 껴안아도 일체 되지 않고 느낌이 따로 논다. 하나님과 인간도 그러하다. 한쪽만 사랑하면, 사랑 관계를 해도 따로 논다. ‘둘’이 같이 사랑해야 따로 안 논다.
8. 두 손을 서로 깎지 껴서 껴안아 보아라. 그러면 두 손이 일체 되어 따로 놀지 않고, 하나 된 느낌이 온다. 서로 껴안고 일체 되니, 한 덩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해야 따로 놀지 않고 마치 두 금덩이가 녹아서 하나 되듯 한 덩이가 되어 ‘사랑 작품, 사랑 형상’이 된다.
9. 서로 사랑해야 ‘오는 사랑’과 ‘주는 사랑’을 느낀다. 혼자만 사랑하면 상대방부터 오는 사랑이 없다. 자기 혼자 만족하는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야 사랑이 ‘하나’가 된다. ‘서로 사랑’이 완전해야 그 영이 ‘휴거의 영’이 된다. <휴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서로 100% 일체 된 사랑의 삶’을 살아야 이루어진다.
10.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된 사랑’을 이루었어도, 살다가 또 혼자서 하는 사랑이 되면 다시 ‘따로 노는 사랑’이 된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 ‘따로 노는 사랑’을 하면 차원이 낮아져서 자동적으로 ‘자녀급 차원의 사랑’이 되고, 일만 하는 ‘종급 차원의 사랑’이 된다.
11.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과 영광’이니,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한 보람을 느끼시고 만족하시도록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위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생각을 알고 살아야 된다.
12. <결혼한 자>는 서로 더 이상 없는 사랑을 하며 살 때 자기가 태어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사랑의 만족을 느낀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고로 천국에서 자기 영도 그리 살고, 지금 생활 속에서도 더 이상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13.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해 주지 않으면 다른 자가 그같이 사랑해 주지 않듯,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휴거된

이 시대 섭리인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신부로서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다른 자는 그같이 사랑할 자가 없다.

14. 매일 '삼위와의 사랑'을 중심한 삶이다.

15. <사랑>도 육신이 늙으면 육의 사랑을 못 하듯이, 때가 지나면 다르다. 그때가 되면 육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나, 노인의 생각과 행위와 같다. 육신이 늙으면, 행동적인 사랑이 안 되기 때문이다.

16. <사랑>도 육신이 늙으면 신경이 굳거나 죽어서 못 느끼니 퇴락하듯, <신앙>도, <하나님 사랑>도 '육'을 통해 하니 역시 육신이 늙으면 퇴락하게 된다. 고로 육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열렬한 사랑을 드리고 자기 영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대상, 신부의 영'이 되어야 한다.

17.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각종으로 행하는 것들>이 '남녀 간의 사랑의 행위'와 같다. 이성의 사랑 관계만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여 행하는 것들>이 모두 '사랑의 행위'다. 부부나 연인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행위가 모두 하나의 '사랑의 행위'가 된다. 이같이 삼위를 사랑하고 행하면, 모두 '사랑의 행위'가 된다.

18. 전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등 하나님의 뜻을 두고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행하는 것이 모두 삼위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은 신부 시대이니, 삼위와 주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되어 하는 것이 모두 '사랑의 행위'다.

19. 결혼한 자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하는 그 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늘 사랑으로 일체 되어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이며, '사랑의 삶'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사랑'으로 하나 된 자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의 행위'이며, 그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다.

20.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어떤 대상이든지 자기가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과 연애하는 것이며, 연혼하는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우상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과 행음하는 자다." 하셨다. 이런 자들은 '창조주의 법'을 떠난 연고로 심판하셨다.

21.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고 성령과 성자 주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여라. 나머지는 같은 형제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랑 대상 차원이 되는 자다.

22. 오직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만 절대자 하나님이 행하신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한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알게 해 주는 증거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섬기니, 모두 '인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의 영은 구원이 안 된다. 영계에 가서 보면, 지옥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 법>에서 벗어나면 1억 명이든, 10억 명이든, 20억 명이든 상관없이 그들 중에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없으니 다 사망으로 간다.

23. <과일나무의 과일>도 크다가 떨어지면 수천 개든, 수만 개든 상관없이 생명권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사라지고, 나무에 달린 것만 주인이 취한다.

24.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무나 쇠덩이, 금덩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자들은 그 영들이 다 지옥에 가 있다. 자기 영이 지옥에 가 있어도 그 차원에서는 모르니, 자기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영원히 그 세계에 처해 산다. 한번 지옥에 가면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니, 그대로 기약 없이 영원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다.

25. <영의 세계>를 모르니,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단들의 논리를 믿으며 살다가 모두 사망으로 간다. 모르니, 같이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다. <비진리>를 믿으니, '분별'을 못 한다.

26. <돌>들은 수백 년, 수만 년씩 강물 따라 굴러가면서 바다로 간다. 그러면서 점점 닳아 없어지고, 모래로 끝난다. 이단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모두 모래로 끝나듯 그들의 육도 영도 그리 끝난다. 다만, 바다로 굴러가는 돌들 중에서 '건져 낸 돌'들은 그 형상을 보며 지상에 남겨 두듯이, 이같이 육도 영도 '구원'하여 건져 내어서

살면 육으로도 온전히 존재하고, 영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27. 모르면, 사기를 당하고 망하고 실패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 좋아서 잔치하며 간다.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28.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알면, ‘최고 좋은 천국 황금성’도 가게 된다.

29. <불법하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시대 보낸 자에게도 행하게 하시어 공의롭게 하신다.

30. <아는 지혜의 능력>이 크고, <행하는 지혜의 능력>이 크고도 크다. 알고 행함으로 육신 일생 누리고, 영혼 영원히 누린다.

31.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는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절대자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계시로 깨닫게 하실 때>는 보여 준 실제 존재물을 통해 ‘그대로’ 보고 깨닫게 하는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이나 만물을 보이고 그것을 ‘비유’로 들어 깨닫게 하는 계시가 있다.

2. <존재물 자체로 깨닫게 하는 계시>와 <비유를 들어 깨닫게 하는 계시>, 두 가지로 계시하신다.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시며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은밀히 계시하실 때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시하신다.또는, 다양하게 깨닫게 할 때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할 때도 ‘비유’를 들어 계시하신다.

4. <그대로 보이며 가르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방식’이다. 다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두 가지 방식을 ‘때’에 맞게 합당하게 쓰시며 행하신다.

5. <비유>를 쓰실 때도, 타인이 눈치를 채고 알게 될 때는 ‘본인’만 깨닫고 알도록 ‘생각’으로 전달하신다.

6. 많은 자들이 있을 때는 본인과 늘 쓰던 방식을 써서 ‘각종 암호’나 ‘눈치’로 전해 주신다.

7.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메시아’다.” 하시며 비유를 안 쓰고 가르쳐 알게 하신다. 어느 때는 “사랑하라.” 하시며 말씀하기도 하신다.

8. <비유>는 자신과 타인이 같이 있을 때 ‘깨닫는 자’만 깨닫도록 쓰기도 하신다.

9.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심이 너무 많고 다양하다.

10. <많이 겪고, 많이 행하는 자>가 많이 알게 된다.

11. <궁금했던 것>이 오랫동안 안 보였어도, 그것을 ‘순간’만 보여 주면 전달되어 깨닫게 되고 해결되는 것이다.

12. 가령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다면, 그 사람을 순간 1초만 봐어도 궁금했던 것이 해결된 것이다.

13. <꿈>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혼’으로 봐야 더 차원이 높아서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14. 자기가 ‘생각’으로나 ‘육’으로 행했어도, 그 행위가 죄인지 모르거나 혹은 부끄러운 일인지 모를 때가 있다. 모르니, 거기에 해당되는 부끄러운 일을 <꿈>에 ‘재현’시켜서 보이며 깨닫게 해 주신다. <생시>에는 사람이나 만물로 자기

행위를 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로 <꿈>으로 ‘재현’하여 만들어 보이신다.

15. <마음이나 생각으로 행한 것>도 행한 것이니, 자기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지은 죄’를 못 깨달을 때는 ‘꿈’으로 보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16. 계속 글을 쓰다가 허리가 굳어서 잠깐 풀려고 누웠는데, 누우니 잠이 오고 생각이 가물가물해졌다. 이때 성령님께서 한 장면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셨다. 나와 상대가 운동장에서 볼을 차는데, 볼이 딴 방향으로 가더니 하늘로 가물가물 올라가서 담을 넘어 딴 데로 갔다. 내가 피곤해서 생각이 가물가물하니, <생각>을 ‘볼’로 보이며 깨닫게 하신 것이다. 가물가물한 것을 육으로는 보일 수가 없으니 ‘꿈’으로 보여 깨닫게 하셨다. <생각>이 ‘실상 세계’다.

17. 담을 넘어간 볼을 찾기 전에는 다시 축구를 할 수 없듯이, 잠언 쓰는 것도 그러하다. 담을 넘어가듯 날아간 생각과 행동을 다시 찾고 즉시 일어나서 쓰던 잠언을 다시 쓰라고 한 성령님의 계시였다. 고로 즉시 일어나서 쓰던 잠언을 다시 썼다.

18. 이때 성령님께서 한 장면을 더 보이시길, 예쁜 돌로 벽을 쌓은 교회 건물이 보였다. 이는 <쓰던 잠언>을 ‘예쁜 교회’로 비유하여 보이신 것이다.

19. 부끄러운 생각이나 행동을 했어도 자신의 행위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 ‘꿈’을 통해 부끄러운 생각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 깨닫게 해 주신다.

20. 꿈에서 어떤 여자를 보니, 그 여자가 자기 집 정원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보려고 방문을 열고 뛰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궁금한 것만 확인하려고 옷도 입지 않고 급히 뛰어나오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자가 그 여자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하니, 여자는 별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확인하고 다시 들어갔다. 이는 그 여자가 생시에 부끄러운 생각이나 행위를 했어도 그것도 모르고 목적인 것만 생각하고 행하니, 그 행위대로 꿈을 통해 보이며 계시하신 것이다.

21. <꿈>을 통해 ‘영적’으로 보여야 다양하고 온전하게 계시하실 수 있다.

22. <꿈>은 ‘생시에 행한 것’과 연관시켜서 풀어라.

23. <꿈>은 ‘생시에 행할 것’도 예언하여 보이기도 한다.

24. <꿈>은 자기가 ‘생시에 행한 것’이나 ‘생시에 행할 것’으로 연관시켜서 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잘못 풀게 된다.

25. <성경>도 ‘하나님이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실제 행하시는 것’으로 연관시켜서 풀지 않으면, 안 맞다. <자기중심, 자기 식>으로 풀면, 자기로 끝나고 자기가 만든 교파로 끝난다.

26. <성경에 예언된 재림, 휴거, 말세, 부활 등 큰 사건>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 안다. 하나님이 오직 그를 통해서만 행하시니, ‘그’ 만이 성경의 예언을 풀며 이루어 가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만 알고 행한다. 고로 계시록 19 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만 안다.” 하셨다.

27. 이단 종교들은 자기 식으로 성경을 풀고, 자기 식으로 행하니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28. <성경의 예언>은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 행하시는 섭리역사에서 ‘실체’를 남기고 이루어진다. 고로 따르는 자들도 알고, 따르지 않은 자들도 그 ‘업적과 실체’를 보고 알게 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꿈>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만 꾸게 하시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만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해 주신다.
2. <자기 주관과 자기중심에 매여 그 환각에 빠진 자들>은 ‘큰 대로’를 두고 ‘소로 길’로 가면서 “이 길로 차가 다닌다. 열차가 뒤따라온다.” 하며 자기 환각, 자기 흥분에 빠져서 주장하며 간다.
3. 자기 주관, 자기중심에 빠지면 뇌가 그리 굳어져서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제대로 안 보인다.
4. <자기도취, 자기중심에 빠진 자>는 마치 마약을 한 자나 술에 취한 자와 같아서 거기에 빠져 생각하고 흥분하니, 제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없다. 이같이 세상의 각종 것들에 빠져 사니, ‘하나님이 이 시대 행하시는 뜻’을 사명자를 보내 행하여도 모른다. 이런 사고들이 깨질 때까지 못 기다리니, 거기에 빠지지 않은 자들은 시대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고 영원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
5. <술이나 마약에 빠져 사는 자들>은 거기서 깨어나기 전에는 전혀 모르듯이, <자기 주관, 자기중심에 빠져서 환상 속에 사는 자들>도 거기서 깨어나기 전에는 전혀 모른다. 본정신이 돌아오면, 그제야 “왜 내가 여기에 왔지?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한다. 그전에는 본정신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6. <이성이나 술, 담배, 마약에 빠져서 본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자들>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니 그냥 두면 안 된다. 고로 ‘법’으로 묶어서 벌도 주고 고통도 주어 못 하게 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기 주관, 자기중심에 빠져서 본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자들>은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타인에게도 해가 되니, ‘하나님의 법’으로 묶어서 그 욕도 영도 그에 해당되는 주관권에 가둔다. 하나님은 사탄도 가두시고, 악인들도 가두신다.
7. 각종 술이나 담배, 마약에 빠져 사는 자들과 같이 자기 주관에 빠져 사는 자들도 정신이 미친 하나의 사이코들이다. 이들은 자기 생각이나 행위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자기 소원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행한다.
8. 사람들에게 해를 주고 죽이기까지 해도, 하나의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이코들이며,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도, 악평하는 자도, 악을 행하는 자도 모두 그러하다.
9.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막고 악평하는 자들도 자기 의지, 자기중심에 빠져서 행하는 자들의 주관을 받고 행하니 모두 정상이 아니다. 자기 욕심, 시기, 질투로 행하는 자들이다. 고로 단호히 막고, 그들이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냥 두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들 중에는 칼과 흉기를 들고 다니며 죽인다고 협박하며 쫓아다니던 자들도 있다.
10. “원수를 사랑하라.”는 전능자의 말씀을 지켜야 될 구원자는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니, 정신 이상자나 미친 자같이 행하며 각종 거짓으로 따르는 자들까지 유혹하고 악을 행하며 영원한 구원을 받는데 해를 주고 막는다. 하나님의 뜻을 펴는데 해가 되고, 생명 구원에 많은 지장을 주니, 주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너희도 기도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받도록 기도하여라.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도 풀어주신다.
11. <악>은 그 행위대로 멸하는 ‘절대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2. <그들의 행위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두는 자>는 ‘그들의 화’와 ‘사탄, 마귀가 주는 화’를 받게 되니, 그들의 악한 행위를 두고 기도하여라. 조금 기도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예 망하게 전심으로 기도하여라.
13. <전쟁을 일삼는 자들>을 두고도 기도하여라. 그들도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14.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세계나 섭리사나 모두 ‘악’을 없애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15. 원수들에게 10년 이상 사랑의 기도를 해 주어도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뜻이 아닌 줄 알고 ‘심판의 기도’를 한다. 악인들은 법으로도 심판받고, 하나님도 심판하신다.

16. 사탄과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해결된다.

17.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이성에 취하고, 자기 사상에 빠져서 취한 자들은 뇌가 아예 돌아서 사이코가 됐으니, 10년, 100년이 가도 그 사상과 행위가 동일하다. 자기가 해를 안 받으려면, 그들로 인해 해를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간 구해서 해결해야 된다.

18. 그들은 본정신으로 깨어나도 하나님께 잘 안 돌아온다. <술, 담배, 마약, 폭력, 육적 사랑에 빠진 자들>을 그 죄값으로 감옥에 1년, 5년, 10년씩 가두어 놓으면 그때는 가두어 놓았으니 자기가 하던 것을 못 한다. 그런데 실상 고쳐졌 나 이야기해 보면, 못 하니까 안 한 것이지 그들의 사고나 생각은 여전했다. 그러니 나가면, 또 한다.

19. 어떤 자는 9명을 연쇄 살인하여 그 죄값으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그러나 거기서도 자기가 하던 사고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담을 넘어가다가 마지막 철조망을 넘어갈 때 잡혔다. 죄값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던 생각이나 사상을 못 버리고 또 하려고 나가다가 잡힌 것이다. 하나님은 '9명을 죽이고도 도망가서 또 죽이려고 나가느냐.'라고 기도한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잡히게 한 것이다. 이같이 사명자는 이미 기도했고, 또한 죄값을 받는 자들의 '죄의 행위'를 두고 기도하며 그 마음과 행위를 다 고치게 했다.

20. 지금은 술에서 깬어도, 마약을 안 먹어도, 이성 관계를 안 해도, 그 '사상과 생각'이 남아 있으니 언제든지 또 하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백 분의 일이라도 생각이 남아 있으면 아예 없애라. 아예 생각도 행위도 안 해야 된다." 하셨다.

21. 항상 악평자들과 악한 자들을 경계하여라. 또한 술 먹고 마약하는 자들, 우울증에 걸린 자들, 정신이상자들은 항상 사고를 내니, 늘 경계해라. 늘 '경계의 담'을 높이 쳐 놓고 단속하고 살아야 된다.

22.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밤낮으로 '선한 자들'도, '악한 자들'도 보신다.

23.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일삼는 자들>도 본정신이 아니다. 자기 사상대로 흥분되어 마치 마약이나 술에 취한 자들과 같이 환각에 빠져서 전쟁에 미쳐 날뛰다. <전쟁>을 '하나의 축제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행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전쟁을 원치 않으신다. 항상 '평화'를 원하신다. 고로 그 법을 범치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그래도 하면,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2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원자폭탄, 미사일, 총과 같은 '세상의 무기'를 안 가지고 계셔도, '바람, 태풍, 지진, 우박, 홍수, 가뭄'으로 빛보다 수백만 배 빠른 속도로 일순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지진으로 1분만 흔들리면 일순간에 멸한다. 태풍으로도, 화산 폭발로도 일순간에 멸하신다. 이같이 생명을 해하는 자들, 악인들은 그 행위대로 다 멸하신다.

25. 악한 행위를 못 하게 틀고 막고 감동을 줘어도 어기고 행하면, 전쟁을 원하지 않는 민족이 그 죄값을 지게 하신다. 고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바라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처리'를 원하면 온 민족과 섭리사 모두가 극적으로 기도하여라. <전쟁을 일삼는 자들>은 그냥 둔다고 물같이 흘러갈 문제가 아니니, 전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행하여라.

26.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왜 하라고 하는지>는 '은밀한 비밀'이다. 결국 행한 자만 깨닫고 알게 된다.

27. 한국은 지진대가 없고 과거에 지진으로 해를 보지 않았으니 지진이 없는 나라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한국도 지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진이 있다." 하셨다. 그리고 4년 후에 경주에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갔다. 이같이 모두 전쟁도, 악평자도, 악인들도 마음을 놓지 말고 기도하라는 '시대의 징조'다.

28.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징조들'이 일어난다.

29. 하나님은 ‘징조’로 ‘만물 계시’를 보이시거나 상황을 트신다.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30. 우상의 도시나, 그러한 장소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리고 계속 심판하신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서로 교통하고 일체 되어 존재하는데도 마치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다르듯이 ‘구조와 형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다.

2. <영의 세계>에는 세상에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생활’도 다르고, ‘존재물’도 다르니, 처음 보면 그 존재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기이하고 신기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다. <혼의 세계>도 그러하다.

3. <영의 세계>는 ‘혼의 세계’보다 더 차원이 높으니, 마치 ‘원시인들의 세계’와 ‘발달된 세계’가 다르듯이 다르다.

4. <육의 세계>도 지역마다 차원대로 ‘존재물’도 다르고, ‘개발한 것’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듯이 <혼의 세계>도 거기에 사는 자들의 말이나 행위의 수준에 따라 ‘사는 환경’도 다르고, ‘사용하는 존재물’도 달라서 발달된 대로 다르게 사용한다.

5. <혼의 세계>가 ‘행위와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듯, <영의 세계>도 ‘영의 행위’에 따라 형성되어 있기에 차원대로 각각 지역이 다르게 존재한다.다만 <혼의 세계>는 보다 복잡한 것에 비해, <영의 세계>는 마치 1, 2, 3등으로 뽑아낸 자들만 모여 있는 것과 같아서 복잡하지 않고, 질서 있게 정돈되어 존재한다. 특히 ‘천국 쪽 영의 세계’가 그러하다.

6. <영의 세계>는 자기 육의 행위대로 ‘영의 형제’가 이루어져서 그 차원대로 각각 해당되는 지역이 존재한다. 고로 그 존재 세계가 엄청나게 많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그 차원에 따라 10개, 20개 지역으로 정해 놓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 정밀하고 세밀하게 ‘체제’를 정해 놓으시고 그 체제에 따라 10억 명이든, 20억 명이든 ‘자기가 행한 대로’ 각각 그 위치, 그 주관권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모여 살게 하셨다. 지구 세상에서도 75억 명의 사람들이 각각 비슷한 세계에서 민족을 이뤄서 살되, 한 나라에 살아도 자기 삶의 수준대로, 자기 생각이나 사상대로, 직업대로 각각 나눠져서 다르게 살듯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7. 하나님은 영의 세계가 좁지 않도록 각각 차원대로 질서 있게 배치하여 살게 하셨다.

8. <세상>에서는 ‘선인’과 ‘악인’들이 섞여 모여 산다. 감옥 정도로만 구분해서 선인과 악인이 나눠져서 산다. 나머지는 같은 지구 세상을 사용하며 비슷하게 산다. 다만 구체적으로 보면, 각자 사는 삶의 수준과 생각도 다르고 가는 코스도 다르다. 그러나 <혼의 세계>나 <영의 세계>에서는 ‘자기 행위와 차원’대로 활동하는 세계가 더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주관권에서 살아간다.

9. <육의 세계>에서는 ‘자기 처소나 자기 주관권’에 근본을 두고 살아가되, ‘다른 세계나 다른 주관권’에 사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연관되면 순간 대화하기도 한다. 자기 주관권에만 갇혀 그 외에는 통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주관권에서 존재하면서 갇혀 있지 않고 타인과의 서로 이야기하고 통하듯이, ‘혼의 세계’도 그러하다. <혼의 세계>도 자기가 존재하는 주관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주관권에 있는 자가 잠시 거쳐 가기도 하고, 또는 그곳에 머무르는 자도 많다.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섬세하게 봐야 ‘육의 세계’도, ‘혼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안다.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존재 세계다. 이는 각자 ‘행위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10. <육의 세계>든지, <혼의 세계>든지, <영의 세계>든지 자기가 봤어도 ‘자기 생각의 차원, 자기 실력의 차원’대로 보기에 ‘원 존재 세계’와 다르게 보고 말한다. 고로, 보고 와서 말해도 그 말이 100% 맞다고 못한다.

11. 기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허락을 받거나 주의 허락을 받고, ‘천사’나 ‘성령님’이나 ‘주’와 같이 가면, 더

높이 보고 더 깊이 보게 된다.

12. 영계가 육계와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배운 대로’ 알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 차원만큼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상대가 ‘말한 대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영의 세계>는 ‘무언의 세계’라서 육신이 말하듯 하지 않고, ‘생각’으로 안다. <세상>에서는 봐도 모르니 말이 많고 ‘입’을 가지고 산다면,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13. <세상>에서는 모르니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마치 눈으로 보면 ‘흰색이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하고 알듯이, 보면 물어볼 필요 없이 거의 안다. 다만 ‘수준이 높은 것’이나 ‘비밀의 것’은 모르니, 물어보고 안다.

14. <육계>에서는 만약 아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보면 누군지 안다. 그런데 <영계>에서는 자기 얼굴과 직책을 상대가 모르게 다니기도 한다. 마치 임금이 변장을 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시장에서 다니는 것과 같아서, 봐도 임금인지 모르듯 그러하다. 고로 <차원이 높은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기에, 상대방에게 나타나도 못 알아보고 악한 영들이나 마귀들이 봐도 못 알아본다.

15. <영계>에서 ‘영들’을 보면,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과 다르다. 고로 지옥 견학을 가면, 세상에서 보던 자인데도 봐도 모른다. 사람이 어릴 때만 보다가 늙어서 변하면 못 알아보듯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서 변했기에 모르고, 또 그 ‘육의 형체’가 아닌 ‘영의 형체’로 보기에 모른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해 주셔야 겨우 그 사람을 알아본다. 얼굴도 몸도 전혀 다르니, 삼위는 알게 해 주실 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던 ‘육의 모습’을 순간 겹쳐 보이게 하시며 알게 하신다.

16. <혼의 세계>에만 가도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혼의 형체’가 형성되어 있다. 고로 그냥 봐서는 모른다. 어떤 자는 바짝 가서 봐도 못 알아보게 그 형체가 변해 있다. 얼굴도 어둡고, 원시인 같고, 육신보다 키도 훨씬 작고, 옷도 거지 옷같이 썩은 검정 옷을 입고 있고, 바짝 말라 있다. <혼의 형체>를 볼 때, 그 사람의 ‘육의 얼굴’이 슬쩍 스쳐 간다. 그래서 아는 정도다.

17. 섭리사를 악평하고, 거짓으로 행하며 온갖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의 혼과 영을 보면, 아예 변질되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다.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 혼과 영이 마치 육신이 사고 나서 다리가 잘리듯 되어 버리고, 마치 육신이 늙어서 노인이 되어 버리듯 해서 다시 원 상태로 복직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기 영이 ‘육신의 행위 그대로’ 받고 형성되어 그 주관권에 해당되는 악한 영계나 지옥에 존재하며 살고 있다. 그 육신도 ‘악의 주관권 세계’에서 살고 있다.

18. 어떤 자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막으며 반대하고,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 영혼과 육신을 유혹하며 사냥하니,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되어 그 육신이 짐승같이 행하며 산 대로 그의 <영>이 ‘뱀’이나 ‘사나운 짐승의 형체’, 혹은 아예 ‘괴물 같은 형체’가 되었다. 이는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영을 보니, 실제로 짐승같이 털이 나고, 몸이나 얼굴, 손, 발이 모두 ‘짐승의 형체’ 그대로였다. 세상의 뱀, 여우, 늑대, 사자,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사람이 될 수 없듯이, 그 영들도 ‘사람의 영’으로 복직이 안 된다. <자기의 악한 행위>가 자기를 그리 만들어 놓았다.

19. 처음에 영계에서 그 짐승들을 봤을 때는 실제 짐승을 보는 줄 알았다. 그런데 각종 귀신의 영들과 사탄들이 모여서 그 짐승들을 관리하고 있기에 그 짐승들을 자세히 보니, 세상에서 보았던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얼굴에 스쳐 보였다. 그때 이를 두고 성자에게 여쭙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대로 그 육신이 행한 그대로 된 것이다.” 하셨다.

20. <영의 세계>는 예리하고 섬세하고 확실하게 보이며 존재한다.

21. <세상>에서 자기 ‘육’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사랑으로 행하면, 그 영이 자기 행위대로 ‘삼위를 닦아 빛나고 찬란한 의의 영’으로 변화되어 ‘빛의 세계, 천국’에 속해 살고, 그 육도 땅에서 ‘하나님 주관권’에 속해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살아간다.

22. <자기 육>이 시대 말씀을 듣고 환난도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면, 그 <영>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는 대로

주와 같이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되어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한다. <휴거된 영들>은 지금도 ‘황금성 천국’에 거하며 <육>은 땅에서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가고 있다.이 모든 것들을 전해 주고 증거하여라. 지금 하나님이 주와 함께 행하시는 일들을 가르치고 증거해 주어라. 이 말씀이 ‘큰 가르침’이며, ‘진리’다. ‘위력 있는 권세의 말씀’이다.

23. <지금 행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일어난다. 그러니 배우는 자들도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받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깨닫고 행하게 된다.

24. <황금을 캐는 자>에게는 ‘어떻게 황금을 캐는지’에 대해 말해 주는 것이 그리 크다. 다른 말을 하면 다 졸고 다른 데로 가니, ‘황금의 위력’을 잃게 된다.

25. <그때에 맞는 말>이 ‘권세’이며, ‘능력’이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핵으로 전하는 말씀>을 해 줘야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 ‘말씀의 능력과 위력’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저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 섭리사 안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을 척척 해 나가며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가게 된다.

26. 절대 만유(萬有)의 이치와 진리는 동일하다.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27. 한 나라의 왕이라도, 먹을 양식이 풍부해도 밥을 안 먹으면 결국 굶어 죽는다. 이와 같이 만사가 그러하다. 안 하면 그대로 있고, 하면 하는 만큼 된다.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세계>가 형성이 안 되면, ‘영의 세계’도 형성이 안 된다.

2. <육>이 형성되어야 ‘혼’도 ‘영’도 형성된다.

3. <육>이 있는 한, ‘육’이 중심이다.

4. <영>은 ‘영의 세계’에 가야 중심이다.

5. <혼>은 ‘육’이 잠을 자거나 기능을 못 할 때 중심이 되어 활동한다.

6. <육>이 움직이면, ‘육’이 중심이다.

7. <육의 행위>에 따라 ‘혼의 상황’도 뒤바뀐다.

8. <육>이 승리하지 않고는 ‘혼’도 ‘영’도 승리하지 못한다.

9. 역시 ‘육’이다. 이 말은, <육>이 안 하면 ‘혼’도 ‘영’도 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10. <육>이 구원을 안 받았는데, <영>이 구원받는 자가 없다.

11.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다.

12. <육의 행위>에 따라 ‘혼’도 ‘영’도 상황이 뒤바뀐다.

13. <육>은 ‘물건’이고, <영>은 ‘저울’과 같다. <육계에서의 행위>를 ‘영계의 저울’에 다는 격이다.

14. <육의 행위>는 마치 물건과 같아서 저울에 올리면 저울 눈금이 반응을 보이듯 ‘혼’이나 ‘영’으로 반응이 보인다.

15. <육>이 마음을 먹고 한 장소에 간다고 했다 하자. 그런데 육이 안 가니, ‘혼’이 그 장소로 가다가 다른 길로 뒤흔어져 갔다. 이같이 ‘육의 행위’에 따라 ‘혼’도 ‘영’도 그대로 반응을 보이며 행한다.

16. <계절>에 따라 ‘땅의 만물’도 변한다.

17. <자기 영>도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 변한다.

18. <자기 혼>도 ‘육신의 행위’에 따라 혼의 세계에서 움직이며 행한다.

19. <육>은 ‘운전대’와 같고 <혼>은 ‘차’와 같다.

20. <육>이 하지 않고는 그 ‘혼’도 되는 것이 없다.

21. <자기 육신>이 ‘신앙’이 약하면, 그 ‘혼’도 보나 마나 약하다.

22. <자기 육의 상태> 그대로 ‘혼’도 그러하다.

23. <돌다리>는 두들겨 보나 마나 ‘돌다리’다.

24. <육의 행위>에 따라 ‘혼’도 무장하고 다닌다.

25. <육>이 ‘자동적’으로 행하면 꿈에 자기 혼이 ‘자동식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수동적’으로 행하면 ‘수동식 무기’를 가지고 다닌다.

26.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말고, 자동기계같이 스스로 ‘자동적’으로 행하여라.

27. <자동적인 자>와 <수동적인 자>는 ‘차원’이 다르다.

<2017년 9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비교해서 볼 때 더 좋으면, 그것이 최고다.

2. 비교해서 볼 때 더 좋지 못하면, 그 존재물이 더 못한 것이다.

3. “이것을 사느니 저것을 사겠다.” 할 때는 ‘이것’이 ‘저것’보다 못한 것이다.

4. <개성>으로 볼 때는 다 좋다. <개성>으로 대하고 살면 다 ‘왕’이다.

5. <전체>에서 뽑으면 ‘하나’지만, <개성>으로 뽑으면 ‘전체’다.

6. 희생해야 많이 얻는다.

7. <손>으로 만들면, 아무리 잘 만들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기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자를 못 따라간다.

8. 꿈에 보니, 5명이 앉아서 ‘강한 돌’을 가지고 석상을 만들고 있었다. 내 옆에 있는 자가 잘 만들고 있어서 보니, ‘돌’에 ‘망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고로 나도 어떤 돌을 쓸까 고민하다가 ‘강한 돌’을 주워서 다시 돌아왔다. 많은 돌들 중에서 어떤 돌을 사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지 못하니 꿈을 통해 계시하여 보이신 것이다.

9. <그 일>을 놓고 깊이 생각하며 확인하고 계산하면,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된다.

10. <생각>하면, ‘답’이 온다.

11. <분별>이란, ‘확인’이다.

12. <존재물>도, <사람>도 ‘개성’에 따라, ‘쓰여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

13. <어디에 쓰여지냐>에 따라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작품도 다르다.

14. 가령 <방>에 돌이나 나무가 쓰여진다면 큰 것이 좋아도 ‘크기’가 합당하지 않고, <공원>에 돌이나 나무가 쓰여진다면 작은 것이 좋아도 ‘구도’에 맞지 않으니 아름답지 않다. <존재물의 장단점>은 ‘쓰여지는 위치와 여건’에 따라 다르다.

15. <쓰여지는 위치와 여건>이 같으면, 그때는 ‘존재물의 모양과 형상’을 보고, ‘개성’을 보는 것이다.

16. <개성>은 비교해도 분별이 안 되고, 답이 없다.

17. <개성>으로 보면 좋아도, 그 하나가 다른 존재물이 가지고 있는 것 까지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한다.

18. 아무리 예쁘고 멋진 자가 있어도, 그 자가 다른 자의 개성까지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

19.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마다 ‘개성의 미와 기지(機智)’를 가지고 모두가 서로 알아주고 인정하도록 창조하셨다. 고로 다른 자들에게 놀리고 밟히지 않도록 모두에게 ‘개성의 권세’를 주시어 좋아하고 자랑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20. <개성>은 ‘자기 생명’이며, ‘명예’와 ‘권세’다.

21. <개성>은 ‘자랑거리’이며, ‘귀한 보화’다.

22. <호랑이>라도 ‘고양이의 형상이나 개성’은 없다.

23. 두 마리를 다 가지면, 그때는 다 소유하게 되니 존재물의 장단점이 해결된다.

24. 차와 자전거를 놓고 비교하면, 차가 훨씬 낫다. 그러나 ‘개성의 장단점’을 따지면, 모두 ‘개성의 왕’이다. 가령 소로 길을 갈 때는 차로는 못 간다. 자전거로 가야 된다. 그러나 먼 길을 가거나 큰 대로를 갈 때는 자전거보다 차가 더 좋다. 하나만으로는 100% 만족하게 사용하지 못하니, 두 개를 다 사용해야 장단점이 해결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개성’대로 다 사용하고 써야 자기도, 부서도, 교회도 장단점이 다 해결된다.

25.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개성의 장단점’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쓰면 또 장단점이 있어서 모순되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26. 왕이라도 백성을 개성대로 다 쓰지 않으면, ‘정치의 밸런스’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

27. 못해도, <못하는 자>는 ‘잘하는 자’와 같이 쓰면 된다.

28. <잘하는 자>만 쓰면, ‘못하는 자’는 안 쓰는 것이니 폐단이다. 또 ‘못하는 자’만 써도 폐단이다.

29.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를 같이 써야 한다.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자’가 안 해도 되는 보다 작은 일들이 있다. 이것을 ‘못하는 자들’이 하면, 전체 구상이 맞아 잘된다.

30. 집을 지을 때나, 작품을 만들 때나 그때마다 해당되는 기구나 재료들을 다 사용해야 제대로 된다. 이같이 신앙 안에서도 작거나 크거나 다 뭉쳐서 해야 제대로 된다.

31. <동물의 왕국>을 만들려면, 작거나 크거나 동물들이 다 있어야 되듯이, <섭리사>나 <교회>도 모두가 다 필요한 자들이니 같이 행하며 존재해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게 된다.

32. <개성>은 다양하다.

33. 환경과 위치와 용도에 따라 댐도, 강도, 내도, 호수도, 연못도 모두 절대 필요하다.

34. 그 위치에 합당한 '개성의 왕'이다.

35. <개성의 왕들> 중에 '왕'이 있다.

36.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육으로 쓰는 자이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모든 것을 아는 전체 '왕 중의 왕'이다.

37. <개인>은 각자 '개성의 왕', 자기가 속한 '단체의 왕'이다.

38. 돌과 물, 각종 동물과 식물, 건물 등 모든 만물이 '상호 존재'해야 단점이 없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이같이 <사람>도 각각의 존재물과 같아서 모두 개성으로 '상호 존재'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39. <월명동 자연성전>도 거기서 하나만 빠져도 표가 난다. 산이나 나무가 빠지든지, 돌이나 바위가 빠지든지, 폭포나 호수가 빠지든지, 건물이 빠지든지, 사람이 빠지든지, 운동장이나 잔디밭이 빠지든지 하면, '전체'를 봤을 때 표가 나게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이 감소된다. 이같이 섭리사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만 빠져도 표가 나고 단점이 보인다. 말씀과 잠언, 전도, 강의, 관리, 설교, 기도, 찬양, 성전 조경, 예술, 각 기관이나 모임 등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단점이 보이고, 표가 나게 그 아름다움과 전체 구상이 감소되어 보인다.

40. 하나님은 섭리사에서 한 사람이 나가면, 전체를 볼 때 한 가지가 빠진 격으로 보시고 '후자'를 세워 다시 채우신다.

41. <사람의 몸>도 지체 중의 하나만 없어도 표가 나듯이, 각 분야에서 '개성의 왕'이 하나만 빠져도 표가 나고 모순이 보인다.

42. <만물>도 '만들기'에 달렸고, <신앙>도 '만들기'에 달렸다.

43. 하나님도, 주도 '인식의 눈, 생각의 눈을 뜬 자'를 쓰신다.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핵>도 있어야 되고, <핵의 배경>도 있어야 된다.이 두 세계는 '한 짝'이다.

2. <집>이 '핵'이라고 하면, <정원>은 그 '배경'이다.

3. <주체>와 <대상>은 한 짝으로 절대적이다.

4. <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계셔야 되고, <대상>인 '사람'도 그때마다 있어야 된다.

5. <밥>과 <반찬>이 '한 짝'이듯, 항상 두 세계는 같이 존재해야 된다.

6. 항상 '주체'와 '대상'을 같이 구상하고 만들어서 존재시켜야 일도 잘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7. <두 존재 세계>로 '이상세계'가 되어 존재한다.
8. <경험>을 가지고 행해라.
9. <경험>은 '겪은 일'이다. 그것을 토대로 '배운 것'과 함께 현재의 것도 행하는 것이다.
10. <겪은 것>이 '경험'이다. <배운 것>이 '경험'이다.
11. <겪은 것>을 '지식과 능력'으로 삼아 현재의 것도 판단하고 처리하며, 현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12. <사람을 대하는 것>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대해 주며 다스리는 것이다.
13. <많이 겪은 자>가 '실체'를 많이 안다.
14. <처음 겪는 자>는 모르니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조심하며 행한다.
15. <경험>을 가지고 '자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현실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16. <과거에 스키를 타 본 자>는 오랜만에 탔어도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그때를 생각하며 타니, 타게 된다.
17. <과거에 운동을 했던 자나, 산을 타 본 자>는 안 하다가 해도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때의 감각을 느끼고 하게 된다.
18. <신앙>도 '과거에 신앙을 하면서 겪은 것'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도 대처하며 해 나가는 것이다.
19. <경험>은 '겪은 것'이며 '배운 것'이다.
20.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서 차원을 높여서 해야 할 것'도 있고, '아주 버리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다.
21. <시험이나 필박, 각종 문제>도 '경험'을 토대로 대처해라.
22. <인생>은 '많이 산 자'가 많이 겪고 많이 안다.
23. 어떤 자는 연륜을 많이 쌓았어도 '한 가지'만 행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안다. 또 어떤 자는 '골고루' 행해서 경험과 연륜이 골고루 있다.
24.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선지자냐, 메시아냐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셨다.
25. <듣는 자>에 따라 말씀하심이 달랐다.
26.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말씀하심이 완전히 달랐다.
27. <그 시대>는 '그 시대 말씀'을 중시하고, '그 시대 말씀'을 주장한다.
28. <사람>에 따라 말씀하심이 달랐다.

29.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르다. 그 사명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니 다른 것이다.
30. 하나님이 보낸 자도 아닌데 스스로 행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이 아닌데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자도 있다.
31. 하나님은 때가 되어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한 것들을 행하며 이루신다. 그런데 모르고 구시대에 처해 옛날식으로 믿는 자도 있고, 새 시대에 와서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이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며 행하는 자도 있다.
32. <새로운 시대>를 못 만나면, ‘구시대’에 처해서 믿고 살 수밖에 없다.
33. <새 시대 복음을 전해 줘도 싫어하는 자들>은 ‘구시대 복음’을 듣고 따르니, ‘구시대’에 처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 ‘그 시대’에 맞게 행하신다.
34.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양 떼가 이 골짜기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저 골짜기로 옮겨서 풀을 뜯게 하듯이, 하나님은 때에 따라 ‘시대’도 ‘각 종교’도 이같이 이끄시며 행하신다.
35. 각자 배운 대로,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36. 인생들 사는 것도 자기 차원대로 거기에 처해 살아간다.
37.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계속 차원을 높이며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38.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대로 땅에서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영의 세계에서도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 자기 영이 ‘더 높고 좋은 차원’에서 살게 된다. 고로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땅에서도 더 차원 높게 살고, 그 영도 최고 좋은 세계로 간다.
39. 같은 지구 세상에 살아도 천층만층 차원대로 살듯이, 천국도 엄청나게 큰 세계이지만 각자 행위대로 차원이 나뉘어져서 산다. 다만 <세상>에서는 각자 자기 차원대로 살아도 모두 ‘같은 지구 세상’을 쓰며 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종급, 자녀급, 신부급’으로 위치도 차원도 쪼개져서 산다. 이 세계는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는 세계다.
40. <선 편 영의 세계>를 대강만 쪼개도 선영계, 낙원급 영계, 천국급 영계, 황금성 천국 세계로 나뉘어져서 존재한다.
41.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겠다.” 하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마지막 재림 역사에서 이루신다. 고로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모든 성경의 예언을 풀고 가르쳐 주며 그 터전 위에 ‘휴거’로 재림의 뜻을 이루신다. 이 역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 목적을 이루는 마지막 성약역사다. 이 복음 역사에 다 참여할 수도 없고, 복음을 당세에 지구 세상 모든 자들에게 다 전할 수도 없다. 전해도, 이미 과거 구시대 신앙생활을 하며 살고 있으니 이 역사에 오기도 어렵다. 나이를 먹고 늙어서 이제 올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 당세에 일부만 이 역사에 참여하여 이들이 천 년 성약역사의 선조들이 되어 뜻을 이룬다. 이들이 당세에 뜻을 이뤄 놓고 가면, 이 역사가 후대까지 이어져서 천 년 동안 커 나간다.
42. 이 역사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약속의 역사’다. 이 역사에 참석한 자들이 이에 해당되는 성약 주관권 천국에도 간다. 또, <구약 주관권 천국>과 <신약 주관권 천국>이 다 다르다. 말씀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니, 행한 대로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 만일 구약 주관권에 있던 자들이 신약 주관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행했으면 신약 주관권 천국에 속해 산다.
43. <영의 세계>를 수백 번씩 가서 봐도, ‘영’은 육의 세계에서 자기 육신이 믿고 행한 대로 가서 존재한다.

44. <육의 세계>에서 안 통하면 ‘영의 세계’에서 서로 봐도 안 통한다. 사는 주관권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생김새와 의상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 차원에 따라 다르다. 차원대로 쪼개져서 존재하니, 안 통한다.

45. 이 말씀을 쓰는 날 꿈에서 보니, 각종 종교와 이념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모두 모인 곳이었는데, 서로 같은 종교나 이념을 가진 자들끼리 통하고, 육으로도 서로 아는 자들끼리 대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으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어도 종교가 다른 자들끼리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쳐다만 보고 그 마음을 읽기만 했다. 마치 염소, 양, 돼지, 닭들이 끼리끼리는 통하지만 다른 종들과는 통하지 않는 것과 같았다. 또 서로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 한 마디도 못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니 아는 자들끼리만 서로 이야기하다가 때가 되니 다들 헤어졌다.<영계>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종교인지, 누가 섭리사에 있다가 나간 자인지 다 안다. 영계에서 그들을 보면 육으로는 아는 자이지만, 말을 하고 싶어도 한 마디도 안 해진다. ‘사고와 생각’이 다르니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말을 해도 근본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육의 세계>에서도 사고나 생각, 행위에 따라 주관권이 나눠져서 살듯, 이같이 <영의 세계>에서도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 주관권이 갈려서 산다. <지옥>도 ‘죄의 행위대로’ 해당되는 위치에서 그 영이 고통을 받으며 산다.

46. 하나님이 이 땅에서 뜻을 펴시면, 자기 육신이 행하는 차원대로 천국, 낙원, 선영계로 나눠져서 자기 영이 영계에서 거할 집을 짓는다.

47. <최고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하시는 ‘휴거 말씀’을 듣고 그 육도 영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어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 완성하여 영원히 사는 세계다. 곧,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믿고 행한 대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사는 ‘황금성 천국’이다.

48. <휴거된 자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황금성 천국’에 자기가 거할 집을 짓고 삼위의 신부가 되어 살고 있다.

49. <구약>은 ‘종급’ 차원, <신약>은 ‘자녀급’ 차원, <성약>은 더 이상 없는 최고 ‘신부급’ 차원의 역사다.

50. <신부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다. 이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구원 역사를 펴 오셨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구약 4000년 동안 ‘종급 역사’를 펴시고,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시어 신약 2000년 동안 ‘자녀급 역사’를 펴시고, 마지막으로 1000년 동안 ‘성약 신부급 역사,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펴신다. 이 역사에 와서 참여하는 자만 땅에서 그 육도 뜻을 이루며 살고, 영도 육신의 행위대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천 년 동안 혼인 잔치 하며 산다.

<2017년 9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더 높고 좋은 곳을 원해도 그곳으로 금방은 못 간다.<새 시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자기 영이 거기에 해당되는 급으로 형성되어 간다.

2. 어떤 영은 새 역사를 따르는데도 자기 성격이나 체질을 바꾸고 더 행해야 되니 거기서 포기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었다. 자기가 수고를 안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영이 영원히 그 차원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3. <최고>로 해야 ‘최고의 위치’에 가게 된다.

4. <옛 시대 기성>에서는 최고로 해도, ‘그 주관권에서의 최고 차원’에 살게 된다. <그 주관권의 최고 차원>과 <이 시대 성약 주관권의 최고 차원>은 땅과 하늘의 차이같이 아예 다르다.

5. <그 주관권에서의 최고>와 <전체 역사에서의 최고>가 다르다.

6. <월명동>에도 ‘전체’ 중에서 최고의 것이 있고, ‘부분’ 중에서 최고의 것이 있다.

7. <육>도 그러하지만, <영>도 ‘최고의 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

8.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 신부’다.

9. 섭리사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행위에 따라 삼위와 주 앞에 ‘최고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될 수 있다.

10. 영계에서 보면, ‘사랑의 대상’은 아예 위치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다. 마치 외국에 나갈 때 나라가 다르면 가는 비행기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꾸며 놓은 것도 다르듯이 ‘황금성 천국’과 ‘일반 천국’은 위치도, 방향도, 꾸며 놓은 것도 다 다르다.

11. <해당이 안 되는 자들>은 그 주관권의 천국에 갔어도 이 세계는 전혀 모른다.

12. <기성 교회>의 ‘일반 수련원’과 <섭리사>의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위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꾸며 놓은 것도 다르듯이 ‘일반 천국’과 ‘황금성 천국’이 다르다.

13. <최고의 천국>은 땅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기 영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휴거되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 목적’을 이루어야 가게 된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문’으로 삼고 행하신다. 고로 그가 먼저 가기 전에는 ‘최고의 천국’에 가는 자가 없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질서 있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14. 하나님은 한 시대만 보고 순간순간 행하지 않으시고 ‘전체’를 보시고 질서 있게 행하신다. 고로 이 시대를 따르는 자들도 절대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해야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다른 데서 자기들끼리 ‘부속품 역사’를 진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에 끼어드는 것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자기 심리와 주관으로 하나의 취미처럼 행할 뿐이다.

15. 섭리사 안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행한 것은 하나님도 주도 용납하지 않으시니 무(無)로 끝난다.

16. 시험 볼 때 자기 생각에 답이라고 썼어도, 채점해 보면 아닌 것은 ‘답’으로 인정이 안 된다. 섭리사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인정되어 ‘영’에 이르기까지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자기 행위에서 끝난다.

17. <온전한 진리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아 있고, 나머지 ‘육에서 끝나고 말 것’은 ‘육’에서 끝난다. <온전한 진리>로 행한 자들은 ‘영’이 그 행위대로 변화되어 ‘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나머지는 ‘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그에 해당되는 ‘다른 주관권’에 처해 살게 된다.

18.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못 만나면, 저마다 ‘머리 없는 육체’만 굴러다니는 삶으로 끝난다.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 보낸 자’다.<나머지 세상 모든 종교들>은 머리 없이 ‘몸’만 가지고 살다 끝나게 된다.

19. <육신>이 죽어야 그 ‘결국’을 안다고 하지만, 지금도 영의 세계를 가서 보면 즉시 안다.

20. 시험 결과를 발표해야 안다고 하지만, 먼저 가서 보고 온 자는 발표 전에도 다 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에 가서 보고 오는 자>는 육신이 죽어서 그 세계에 가기 전에 안다.

21. 열차를 타고 가 봐야 안다고 하지만, 가지 않아도 ‘갔다 온 자’의 말을 들으면 다 안다. 고로 처음 가는 자는 안가 봐서 모르니, 늘 다니던 자가 비디오를 찍어서 보여 주며 다 알게 가르쳐 준다. 이같이 <천국>도 육신이 죽어서 안가도, ‘말씀’을 듣고 알고 지금 ‘혼’과 ‘영’이 가서 보고 안다.

22. <구시대인들>은 새 시대를 안 거쳐서 모르나, <새 시대인들>은 이미 과거를 다 거쳐 와서 안다.

23. <세상의 각종 종교들>은 별난 말씀을 가지고 자부심을 넣어 주며 희망을 줘도 결국 그들이 가는 영계는 ‘그 주관권의 영계’다. 그릇되게 가르친 이단 종교들과 악평자들은 그 행위대로 온전하게 존재하지 못한다. 그들이 인생 늙을 때까지 한 것은 세상에서 끝난다. <영>은 욕이 그릇된 비진리를 행한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왜 내가 여기 왔냐?” 하며 길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곳에는 나가는 길이 없다.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주’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세상에서 그 욕이 행한 대로 끝났다. <해>는 하루에 두 번 뜨지 않는다.

24.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행한 자들만 ‘온전한 세계’로 간다.

25. <온전한 진리>를 조금 가져다 가르친다고 ‘온전한 세계’에 속하겠느냐. <차의 부속품>을 일부 가져다 ‘자기 자전거’를 조립한다고 ‘차’가 되겠느냐. 이와 같이 각종 이단 종교들이 그러하다.

26. <몸>에 ‘머리’가 하나이듯,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육신으로 쓴 자>도 ‘하나’다. 그를 통해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를 펴신다.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70년 동안 이 역사를 펴고 끝내시고, 황금성 천국에서 신부로 휴거된 영들과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하신다. 그리고 땅에서 보낸 자의 육신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를 펴고 계신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해당되는 자들>만 그 일을 이루며 간다.

27. 자기 몸에 붙은 살만 자기 살이듯, 그리스도께 붙은 자만 그와 같이 행하며 그 주관권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편다.

28. 섭리사에서 주를 믿고 따라도 보통으로 믿고 따르면서 자기 욕에 속해 살면, 그 행위대로 ‘그 위치의 삶’을 산다.

29. <최고로 한 자>만 ‘최고’가 된다.

30. 자기 의견과 자기 주관을 섞지 말아라.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않은 것>을 섞어서 같이 만들지 않는다. 온전하지 않은 것은 자동적으로 없애 버린다.

31. 메뚜기 다리와 여치 다리가 서로 섞이지 않듯이, <자기중심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주의 작품’에 섞어서 안 만든다.

32.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하시는 역사다.

33. 집을 지었으면 쓰레기들은 모아서 다 불사르듯이, 자기 뜻을 이루는 행위와 불법한 자들의 행위는 용납지 않는다. 고로 알곡을 다 거두고 그 외에는 그 날에 다 불사르듯 하신다.

34.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하나 되어 행해라. 이것만이 영원히 남아져서 빛난다.

35. 이미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벗어난 자들은 마치 잘린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이미 말라 없어지듯 하였다. 그 육신은 숨을 쉬고 사나, 주인이 버렸으니 풀밭에서 잡초와 같이 사는 격이다.

36.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나니, ‘담 너머 인생’이 된 것이다.

37. <생명권>과 <사망권>은 그 ‘한계선’이 분명하다.

38.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땅처럼 보여도 <주인 땅>과 <남의 땅>이 ‘한 줄’ 차이를 두고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39. <집>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화장실과 부엌이 구분되어 있다.

40. 한자리에 같이 있을 때는 비슷해 보여도, 때가 되어 갈려서 갈 때는 각자 ‘동’으로 ‘서’로 가듯 ‘사망’으로 ‘생명’으로 갈려 간다.

41. 몸의 각 지체를 보아라. ‘칼날’ 같은 차이인데도 ‘눈’과 ‘살’로 갈리고, ‘귀’와 ‘살’로 갈리고, ‘코’와 ‘살’로 갈린다. 2~3cm 차이인데도 ‘배설물이 나오는 위치’와 ‘금단의 과일의 위치’로 갈린다. 이와 같이 사람도, 종교도 ‘위치의 차이’가 그리도 크고 엄청나다.

42. 잘못하면, ‘사망’이다. <위치>가 ‘생명’이요, ‘핵’이다.

43. <한국>과 <북한>도 철조망 한 줄 차이인데도 ‘자유 세계’와 ‘고통의 세계, 지상 지옥 세계’로 갈린다.

44. 어떤 자가 자기는 탈북 했다고 하며 수십 가지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길, 그곳에서는 옥수수를 먹을 때 그 뿌리까지 다 캐서 가루로 만들어서 옥수수와 섞어 먹는다고 했다. 그렇게 먹으니, 독해서 피가 난다고 했다. 백성들은 그같이 굶주리는데 위사람들은 잘 먹는다고 했다.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몇 사람과 함께 국가에서 농사짓는 땅에 몰래 들어가서 옥수수를 땀는데, 그때 지키는 자가 총으로 쏘아서 자기와 함께 3명만 살아오고 4명은 죽었다고 했다. 배고파서 죽느니 도둑질을 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리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죽기 전에 탈북 해서 한국으로 왔다고 했다. 이 사람에게 지금껏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살았으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해 줬다. 그러니 하나님이 있으면 북한을 그리 뵈겠냐고 하며 자기가 지혜롭게 하면 잘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와 같이 철조망 한 줄 차이로 두 세계가 갈려 있다.

45. <감옥>도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유 세계’와 ‘지상 지옥 세계’다. <위치>가 그리 중하다. <한계선>에 따라 엄격히 차이가 있다.

46. 선영계, 낙원, 천국, 황금성 천국도 ‘위치’에 따라 차이가 너무도 크다.

47. <집>도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방은 비가 새고, 한 방은 안 샌다.

48. <도시>에 가 보면, ‘실금 하나’를 두고 국가 땅과 개인 땅으로 나뉜다.

49. <월명동>도 ‘줄 하나’ 차이로 우리 땅과 다른 자의 땅으로 나뉜다. 고로 ‘줄 하나’ 차이로 개발하는 것도 다르고, 다니는 것도 다르고, 대함도 다르다.

50. 접리사 안에서도 같이 배우고, 같이 다니고, 같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사는 자’와 ‘그냥 보통으로 사는 자’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생각의 차이, 행위의 차이다. 고로 아예 ‘급’이 다르다.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창조선>을 넘어서 한계 이상 가면, ‘손해’다.

2. 그 한계선까지 못 가면, ‘손해’다.

3. <자체 능력>이 있는데 안 하면, ‘손해’다.

4. <몸>도, <생각>도 ‘존재의 한계’가 있다. 그 한계선까지 못 하면 ‘손해’이고, 하면 ‘유익’이다.

5. <개발의 한계선>이 있다. 거기까지 해야 최고 아름답고 구조가 잘 맞는다.

6. 좋아도 ‘한계’를 넘지 말아라.

7. <지체>에는 ‘고정된 지체’와 ‘신축(伸縮)하는 지체’가 있다. 하나님은 <고정된 지체>는 그대로 쓰고, <신축하는 지체>는 상황에 맞게 쓰도록 창조하셨다.

8. <존재물>도 ‘고정시킨 것’이 있고 ‘신축하는 것’이 있다.
9. 가령 개발할 때 ‘고정시킨 것’은 그대로 쓰고, ‘신축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 개발해서 쓰는 것이다.<개발할 것>은 ‘신축하는 것’에 해당된다.
10. 어떤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로 두고 써야 되고, 어떤 것은 ‘신축하는 것’에 해당되니 개발하여 써야 된다.
11. <삶의 균형>이다. 모든 일을 두고 골고루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12. 하나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을 보람 있게 이루지 못한다.
13.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창조하신 대로 개발하고 쓰면, 한계가 없이 무한하다.
14.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찾아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이 행하신다.
15.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인간의 삶>은 마치 ‘무력의 삶’과 같아서 해를 받고 한계를 맞게 된다.
16. <인간이 살면서 개발해야 할 것>은 ‘생각’이다. <생각의 세계>는 ‘무한정의 세계’다. 그로 인해 ‘모든 지체들의 행함’도 무한하게 된다.
17. 하루나 한 시간을 놓고 봐도, 생각이 한 군데에 빠지면 그로 인해 시간이 소모되고 결국 해가 저문다.
18. 사람은 ‘자기 취향, 자기 입맛’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빠지면 밥상 위의 다른 음식은 보이지도 않고 맛도 모르듯이, <인생의 삶>도 ‘자기 좋아하는 것’에 쏠려서 살면 다른 것은 못 본다. <인생>은 ‘삶의 맛’이다.
19. 물건을 살 때도, 어떤 것을 개발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쏠려서 하면, 다른 것은 못 보게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20. 가령 시장에 가서 한 물건에 빠지면, 다른 것이 더 좋아도 못 본다. 이때는 ‘전체’를 보고 선택하고 사야 제대로 사게 된다.
21. 전체를 보고 최고 좋은 것을 고른 자도, 그보다 못한 것을 고른 자도 그때는 표가 나지 않는다. 그것을 사용하고 행해 보고 열매를 봐야 그 차이를 안다. 이와 같이 <인생 삶의 세계>도 그러하다.
22. 모두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열심히 사니, 겉으로 보면 다 좋게 보인다. 이때는 ‘미래’와 ‘영원한 것’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러면 차이를 알게 된다.
23. <할 때>는 기쁘고 좋아도, <행한 후>에 후회가 없고 해가 없어야 된다.
24. 세상에서 살 때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며 살았어도, 그 후에 자기 영이 영의 세계에 갔을 때 후회가 없어야 그 삶이 ‘온전한 삶’이다.
25.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상을 얻는 삶’이어야 된다.
26. <무모한 행위>는 ‘허무한 것들’이다.
27.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남아진다.

28. <육에 속한 것들>은 육이 날로 쇠잔해지듯이 그같이 끝나게 된다.
29. <온전한 길을 찾은 자들>은 부지런히 갈 길을 가야 된다.
30. 여름철에 얼음을 손에 들고 가는데 늦으면 다 녹아 없어진다. 이같이 '자기 할 일'을 두고 모두 그러하다.
31. <생각의 실험>이다. 생각해 보면, 실제로 해 보나 마나 다 안다.
32. <생각>으로 실천해 보면, '육'으로 안 해 봐도 확인이 된다.
33. <생각>도 하나의 '영적 실천'이다.
34. <기도>하고 '지혜'로 확인하기다. <몸>으로 하면 늦고, 오히려 손해다.
35. <사람>은 '사람'을 다루기 쉽다. 같은 것을 겪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알기 때문이다.
36. <개인>은 '가정'을 이루고, <청중>은 '민족'과 '세계'를 이룬다.
37. <개인이 보는 창문>과 <민족이 보는 창문>과 <세계가 보는 창문>이 다르다. 모두 '차원'이 다르다.
38. 한 몸을 가지고 '개인형'으로 살면 그것도 맞고, '가정형'으로 살면 그것도 맞고, '민족형'이나 '세계형'으로 살아도 그것도 맞다.
39.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신축성의 존재'다. 고로 예정되어 있기보다 '행함'으로 좌우된다.
40. <생각>은 '신축성'이 크다.
41. <자기 행위>도 '신축성'이 크다.
42. <자기 인생>을 '하나님과 주'께 맡겨라. 안 맡기면, 그만큼 손해다. 맡기면, 그만큼 골고루 쓰게 해 주신다.
43. 가령 전문가에게 3억을 맡겼다 하자. 그러면 그 돈으로 집도 마련하고 땅도 마련하여 살게 할 것이다. 이같이 <네 인생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삼위는 그 영을 위해서도, 육을 위해서도 균형 있게 살게 하신다.
44. 세상에 맡기면, 어떤 것은 더 화려해 보인다. 왜 그럴까? 세상에 맡기면 '영'을 위해서 안 쓰고 모두 '육'을 위해서만 쓰니 그러하다. 그러나 농사를 안 짓고 먹고 즐기지만 하는 자와 같아서 후에는 거둘 것이 없고 고생길로 가게 된다.
45. <시간>도 '돈'이다. 자기 육만 위해 쓰지 말고, '영'을 위해 균형 있게 골고루 써라.
46. <육>만 위해서 쓰면 미래가 없으니 '희망이 없는 삶'이다. 미래에도 많이 쓰고 누려야 하니, '영'을 위해 써야 균형 있게 존재하게 된다.
47. 잘못 택하면 땅을 사고 바위만 깨고 있고,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가서 집도 못 짓는다. 이같이 <인생>도 선택을 잘 하고 계산을 잘해야 된다.
48. <하늘의 전능자와 그 보낸 자의 방법>으로 하기도.

49. <인생>도 계산을 잘못하고 살면, 자기 개발하다 인생 끝난다.

50. 모르고 할 일을 했으면, 아쉽기는 하나 해야 할 일을 했으니 ‘실속’있고 ‘성공’이다.

51. 아는데 할 일을 못 했으면, 그때는 아쉽기보다는 ‘후회’한다.

52. 알았으면 후회하지 말고, ‘안 것’을 가지고 다른 것도 비추어 보고 생각하고 행하여라.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알면 아는 대로 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된다.

2. 모르고 만들어도 만들어지고, 알고 만들어도 만들어진다.

3. <인생>을 알고 살아가나, 모르고 살아가나 살아가기는 한다.

4. 하나님이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뜻을 이루어 가는데도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인생들은 살아간다.

5. <아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살아간다.

6. <이 시대 새 역사>가 시작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구시대 역사’는 돌아갔다.

7.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았든지, 못 맞았든지 ‘역사’는 지구가 돌아가듯 돌아간다. 다만 <메시아를 맞은 자>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 그리함으로 세상에서도 그 욕이 새롭게 살아가고, 영도 ‘새로운 천국 세계’로 간다.

8. <성경에 예언된 새 시대 역사>가 시작됐어도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나 무지해서 불신한 자들은 ‘구시대’에서 살아갈 뿐이다.

9.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망을 이루고 사는 것’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의 차이이다.

10. 알면 잘 살게 되고, 모르면 못 살게 된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알면 ‘욕’도 ‘영’도 잘 살게 되고, 모르면 못 살게 된다.

11.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때가 되어 <신약> 때 ‘메시아 예수님을 맞은 자’만 이루었고, ‘못 맞은 자’는 옛 시대 신앙을 하며 살았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것이 이뤄지지 않는 데서 살면, 희망도 없고 새 시대에서 받을 것도 못 받고 빈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새 시대가 왔는데 구시대에서 옛 신앙을 하며 살면, 마치 구약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불신하면서 ‘구약 법’에 속해 사는 것과 같아서 희망도 없고, 그 뜻도 이루지 못하고 산다.

12.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원이 다르듯, 하나님은 신약시대와 차원이 다른 ‘새 시대 새 역사’를 펴 나가신다.

13. <구시대 구약역사>와 <신약 때 메시아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중심해서 약속하신 뜻을 펴고 차원 높여서 구원역사를 편 것>은 아예 다르다.

14. <이 시대 역사>도 ‘신약역사’에서 펴는 구원역사와 아예 다르다. <성약> 때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 이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뜻’을 신약 때보다 더 이상적으로

퍼신다. 고로 ‘구약’과 ‘신약’의 차원이 다르듯 땅에서도 영계에서도 ‘성약’의 그 수준과 차원이 아예 다르다.

15. 가정의 한 형제들이 결혼하려고 배우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자. <기다리던 배우자를 못 맞은 자>는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과 살아가고, <맞은 자>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간다. 배우자가 왔는데도 모르거나 불신하고 그냥 사는 자와 온 것을 알고 결혼해서 사는 자는 그 삶이 아예 다르다. 삼위는 보낸 메시아와 함께 배우자 입장이다.

16. 하나님은 <신약> 때 메시아 예수님을 ‘자녀’ 입장으로 보내시어 <그를 맞은 자>는 하나님 앞에 ‘종급’에서 ‘자녀급’이 되었고, 메시아 예수님 앞에는 ‘형제급’이 되었다.

17. <이 시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낸 메시아를 맞은 자는 ‘자녀’에서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된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보낸 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땅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며 성약역사를 펴 나가고, 천국에서도 그 영이 황금성 천국에 거하며 ‘성약 신부 역사’를 펴 나간다.

18. <신랑을 맞은 자들>은 가정에서 한 형제들과 살다가 ‘신랑 집’으로 떠나간다. <신랑이 사는 세계>로 가니 ‘환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다. <하나님>은 이 시대 ‘신랑’이 되어 주시고, <성자>와 <성령>도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되어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간다.

19. 세상에서는 육체로 이성 행위를 하며 사랑하지만,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사랑은 육체끼리 하는 사랑이 아니니 다르다.<삼위와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 관계가 아니라 ‘영적 사랑’이다. <영적 사랑>도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하듯 한다. 그러나 남녀의 이성적 사랑보다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높고 깊고 넓은 ‘삼위와의 신적 사랑’이다. <삼위와의 사랑>은 ‘영적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육적, 정신적 사랑을 다 합쳐도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이다. 영과 영의 사랑, 육과 영의 사랑이다.

20. 가령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음식’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질’이 다르니 음식과 사랑의 관계는 못 한다. 과일은 입으로 먹고 맛을 느끼며 사랑하듯 한다.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영체’이시니 인간이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극적으로 사랑해도 ‘질’이 다르니 육과 같은 사랑의 관계는 못 한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과일을 먹을 때 온몸의 신경과 뇌가 느끼듯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삼위를 사랑하면 온몸의 신경과 뇌신경이 그 사랑을 느낀다. 마치 과일을 먹으면 ‘입’에서 맛을 느끼듯이 ‘뇌’에서 그 사랑을 느낀다. 이런 사랑을 삼위와 하며 ‘신부 역사’를 펴 나간다.

21. <육체의 사랑>은 ‘성적 지체’로 느끼고, <음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입’으로 느끼고 ‘뇌’로 느낀다.<영적 사랑>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신부가 되어 삼위와 주와 사랑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느낀다.

22. <사랑>도 ‘형제끼리 사랑하는 세계’가 있고, ‘애인이 되어 사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도 그 사랑의 대상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구약> 때는 ‘종급 사랑’이고, <신약> 때는 ‘자녀급 사랑’이고, <성약>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신부급 사랑’이다.

23.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은 자>는 땅에서도 사랑의 뜻을 이루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메시아의 육신’을 쓰고 오시어 땅에서는 그가 ‘신랑 입장’이 되어 사랑의 뜻을 펴 나가고, <땅에서 메시아를 맞고 그 뜻을 이룬 자들>은 ‘휴거의 영’이 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삼위와 주와 천 년 동안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간다. 지금 이 역사가 진행 중이다.

25. 하나님은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약 4000년간 ‘종급 차원’에서 역사를 펴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신약 2000년간 ‘자녀급’ 역사를 펴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약역사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천 년 동안 ‘사랑의 대상, 신부급’ 역사를 펴 나가신다. 성경에서 이 <사랑의 기간>을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예언했다. 이 신부급 역사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맞은 자만 참여한다.

26. <아는 자>는 실천하며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살아간다. 세상만사가 모두 그러하다.
27. <아는 자>가 말을 안 하면, 모른다.
28. <세상>은 ‘모르는 자의 삶’과 ‘아는 자의 삶’이다.
29. <아는 자>는 ‘다른 세상’에서 산다.
30. <모르는 자>는 10년이 가나, 70년이 가나, 1000년이 가나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모르는 자는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
31. <아는 자>는 계속 ‘새로운 세계’로 차원 높여 살아간다.
32. <구약 종급 역사>에서는 ‘신약 자녀급 역사’를 할 수가 없다. 구약 주관권에서는 아무리 자녀같이 대하고 사랑해도, 제도가 다르니 안 된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뜻을 펴시기에 신약 때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온전히 맞고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신약 자녀급 역사’에 속해 살게 하셨다.
33. <신약 자녀급 역사>에서 아무리 신부같이 사랑하며 산다고 해도 ‘신약급’밖에 안 된다. <성약 신부급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 보낸 자를 그 육으로 삼고 ‘시대 뜻’을 펴시기에 신약 주관권에서 완전히 전환해서 마치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이 땅에 온 시대 구원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해서 일체 돼야 ‘신부’로 변화되고 ‘휴거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리함으로 ‘신부로 완성된 영’은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되어 가서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34. 땅에서 성약역사에 보낸 자를 맞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과 구시대 자녀급 말씀을 듣고 행하여 ‘자녀급 영, 형제급 영’이 되는 것은 아예 다르다.
35. <천국>은 ‘구약 종급 천국’과 ‘신약 자녀급 천국’과 ‘성약 신부급 천국’으로 크게 나뉜다.
36. 하나님은 성약역사에서 천지 창조 이후 ‘최고 사랑의 역사’를 펴신다.
37. <구원>도 땅에서 ‘육신’이 행한 대로 받고, 그 행위대로 ‘영’이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천국으로 간다.
38. <천국>은 지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수조 배 크고, 우주와도 비교도 안 되게 크기에 ‘차원’대로, ‘급’대로 다 나뉘어져 있다. <천국 가장 높은 곳>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하시는 세계’가 있고, 그다음에는 땅에서 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휴거된 성약역사의 신부들이 거하는 ‘황금성 천국’이 있다. <황금성 천국> 중에서도 차원대로 쪼개져서 존재한다. 그중에 ‘하늘만을 사랑하고 산 자들의 세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하시는 세계와 가까이 있다. 그다음에는 <성약급 천국>이 있고, 그다음에는 <신약급 천국>이 있다. <신약급 천국>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자녀 입장에서 사랑하는 세계’로서 역시 차원마다 위치가 다 다르다. 신약 주관권에서 충성하며 행한 자들의 위치가 다르고, 순교하고 산 자들의 세계가 다르다. 그러나 <신약 영계>는 ‘성약 영계’보다 훨씬 빛도 약하고 사는 환경도 못하다. 그다음에는 <구약 성>이 있다. 구약에서 구원받고 산 자들이 거하는 영의 세계도 따로 있다. 그곳은 ‘구약식 건물’로 되어 있고, 역시 신약급 천국과 위치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다. <영의 세계>는 모두 개인별로 거하는 곳이 쪼개져서 존재하고, 집도 위치도 다 다르다. 다만 그 주관권에 사는 자들은 ‘같은 주관권’에서 거하면서 각자 차원대로 위치가 정해져서 산다. 세상에서는 재벌이든지, 정치가든지, 스타든지 모두 한 도시에 모여 산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땅에서 행한 공력대로 쪼개져서 받고 산다.
39. 천국에서 같은 주관권에 거하는 자들끼리는 다 통하지만, 사는 위치와 삶은 다르다. 세상에서도 거리에 나오면 외국인이든 같은 민족이든 누구나 통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는 집도 다르고 삶의 위치도 다르다. 이와 같이 <천국>도

그러하다. 시대가 다르고, 공력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이다.

40. <세상>에서도 자기가 아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만들면서 살아간다.<영의 세계>도 자기 취향대로 만들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영이 변화되어 거기에 합당한 세계로 가서 산다.

41. 어떤 자는 강가를 싫어해서 산을 끼고 살아가고, 어떤 자는 도시를 좋아해서 도시 속에서 살며 기뻐한다.

42. <천국>은 자기 육신이 살면서 행한 공적에 따라 그 영이 해당되는 곳에 가서 산다.

43. <나이 든 자들>은 ‘예전에 자기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며 살아간다. <젊은 자들>은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좋아하며 살아간다.이 시대도 그러하다.

44. <새 시대>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던 대로 사는 것이 체질이 되고 정이 들어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45. 자기 환경을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기를 원해서 수년씩 실천하며 사는 자가 있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자가 있다.

46. <월명동>같이 새롭게 개발하고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옛날에 살던 삶 그대로 살거나 거기서 집이나 다시 짓고 깨끗하게 고치는 정도로만 원하고 살기도 한다. 이 시대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도, 늙어서 새 시대를 뛰지 못하니 구시대에서 살기도 한다.

<2017년 10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겉으로 보는 것>과 <실체>는 다르다.

2. <겉모양>은 ‘원’인데, <실체>는 ‘타원형’이었다.

3. <건물의 겉모양>은 길고 컸는데, <안>을 보니 너무 작았다.

4. <어떤 상황>도 ‘겉’으로 듣기에는 두렵고 걱정됐는데, ‘실체’는 조용했다.

5.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니, 말세가 되면 천지개벽하고 지구가 불타서 멸망하고 의인들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다 멸한다고 했다. 그런데 말세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조용했다.

6. <계절의 말세>가 오니, 여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죽은 자같이 조용히 숨을 거두고 간다.

7. <말세>가 와도 ‘해당되는 곳’만 심판하시고, ‘해당되는 곳’만 주를 맞고 잔치하며 소란하다.

8. <초상집>만 슬피 울고, <잔칫집>만 즐겁고 노래하며 기쁜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9. 해당이 안 되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역사하셔도 모른다.

10. 자기에게 해당이 안 되고, 관심도 없으니 30년, 70년 전에 했어도 모른다.

11. <해당된 곳의 땅과 집을 산 자>만 그곳의 땅값과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집중해서 보고, 난리 치며 기뻐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것이지 <안 산 자>는 관심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12.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야 그가 왔을 때 믿고 따르며 살게 된다.

13. 파도치는 해변에 살면서 늘 보고 관심을 가져야 기뻐하며 소리 지르고 스릴을 느낀다.

14. 산속에 살아야 자연의 변화를 보며 때를 좇아 행하고 좋아 즐긴다. 사막에 사는 자는 모른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와서 사는 자>만 좋아서 알고 소리치며 기쁨으로 산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15. <거기에 해당되어 사는 자>만 느끼고 알고 산다. <선 너머 사는 자>는 모르고, 알아도 못 느낀다.

16. 같이 있어야 알고 느끼게 된다.

17. <주와의 거리>가 '차원'이다.<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거리>가 '차원'이다.

18. 앞거리, 뒷거리다.

19. <생각의 거리>, <마음의 거리>다.

20. <육과의 거리>, <영과의 거리>다.

21. <1:1의 거리>다. 1:1은 금방 통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도 '1:1 거리'요, '1:1 위치'다.

23. 지난날 인간의 무지를 보아라. <구약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다리고 원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를 육으로 쓰고 왔는데도 못 맞고, 2000년이 지나도록 그 후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며 못 맞고 산다.

24. <인간의 생각>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된다. 고로 땅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못 맞고 '구약 주관권'에서 산 그 생각과 행위대로 영계에서도 '메시아를 못 맞고 사는 자들의 영계'에서 산다. 메시아 예수님을 못 맞고 구약 주관권에서 산 자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의 주관권이 다르듯 그들이 가는 영계가 다르다. <구약급 천국>은 천국 중에서도 차원이 낮은 초급 영계에 이루어져 있다.

25. <구약 주관권>에 속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니, 그 육이 죽어서도 어쩔 수 없이 '구약 주관권에 해당되는 영계'로 가게 된다.그 영계는 '구약식 영의 세계'다.

26. <육>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평생 살듯이, <영>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형성되어 '거기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서 산다.

27. 가령 월명동을 개발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았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도 옛날 골짜기 모습 그대로 황막하고 잡초가 우거져 있었을 것이다.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못 맞고 죽으면, 이같이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의 삶'을 살듯 한다. 꿈에서 영의 세계만 봐도 '영들의 실상'을 다 본다.

28.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다 말씀하시니, 영의 세계에 안 가 봐도 다 안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0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새 시대가 와서 21세기를 보내고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사는 자는 지금도 '19세기, 20세기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간다.

2. 같은 세상, 같은 지역에 살아도 '새 시대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발하여 새 집을 짓고 사는 삶과 그러지 않은 삶은

아예 딴 세상이다. 새 시대를 안 받아들이고 옛날 농사짓듯 옛날 것을 그대로 놓고 옛집에서 살듯 하면, 새 시대가 와서 윗집, 아랫집 다 개발하여 새 집을 짓고 살아도 못 느끼고 옛것에 만족해서 산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3. 천국도 모두 같은 환경과 배경이 아니다. 세상에서 자기 욕이 행한 대로 각각 해당되는 곳으로 간다. 모르면, ‘모르는 세계’에 간다.

4. 어떤 자는 그 부모가 종교를 반대하고, 섭리사도 반대했다. 그러다 그 부모가 죽을 때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이 넘어갈 때 귀에 대고 “선생님 믿어요.” 하니, 무의식 가운데 고개를 끄덕거리고 죽었다고 했다. 이런 자들이 자기 부모를 구원시켜 달라고 편지가 온다. 세상에서 주가 전하는 말씀도 안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구원받는 것이 쉽겠느냐.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힘들어도 개발했기에 앓을 곳도 있고 비경을 보고 누리듯이, ‘복음’을 전하면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해야 영의 세계도 제대로 간다. 서울 명동, 압구정동, 신사동 같은 ‘금’ 같은 땅에 집을 짓고 정원을 꾸며 놓고 사는 것이 쉬우냐. 하물며 최고 높은 천국인 <황금성 천국>은 어떠하겠느냐.

5. 서울 명동은 한 평에 거의 3억까지 하니, 그곳은 한 평 사기도 힘들다고 하면서 ‘황금성 천국’은 한 평에 얼마나 되냐고 하나님께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값이 없다.” 말씀하셨다. 사람들에게 귀한 가치를 알게 해 주려고 한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한 나라를 팔아야 한 평 정도 산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그리 가치 있는 황금성 천국에 가도록 사랑으로 휴거시켜 주는데, 가치를 모르니 뺏긴다.” 하셨다. 애인이 비싼 땅을 줬는데도 가치를 모르면, 관리를 못해서 뺏긴다. 이같이 휴거도, 황금성 천국도 줬으면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6.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리 크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휴거시키고 ‘황금성 천국, 하나님의 땅’을 천 평, 만 평도 주시고, 혹은 도시만 하게도 주시고, 혹은 한 나라만 하게도 주시고, 혹은 지구만 하게도 주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따른 것 때문에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신다.

7. 섭리사 안에서도 ‘깨닫고 행하는 자’만 받고 누린다. 아무나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다. 고로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여라.

8. 세상에서 재벌로, 정치가로 성공하겠다고 하나, 그에게 준 ‘하늘의 것’도 뺏기고 ‘세상의 것’도 안 되게 된다.

9.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려도 하루 해가 지듯이 서서히 끝난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화려해도 늙으면 끝난다.

10.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휴거된 자가 누리는 것>을 비교하면 마치 ‘개인 집에서 사는 것’과 ‘지구만 한 집에서 사는 것’같이 차이가 있다.

1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이 얻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봐서는 봐도 잘 모른다.

12. <섭리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 ‘작품 솔’같이 크고, 그러지 않는 자는 ‘분재 솔’같이 안 크다. 늦게 온 자라도, 말씀을 듣고 행하면 매일 무럭무럭 ‘작품 솔’같이 크다.

13. <섭리사에서 힘들다고 안 하는 자>는 마치 월명동을 개발하는 것이 힘들다고 안 하고 옛날 그대로 사는 자와 같아서 더 힘든 것이다.

14. <월명동>을 보아라.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했던 곳을 한 달, 세 달, 일 년, 수년씩 개발하니 늘 서 있던 곳을 앉는 곳으로 만들어서 보며 기뻐서 소리치고 있지 않느냐.

15. <자기 욕>을 가지고 행하며 ‘사랑 개발’이다.

16. 고속도로를 닦듯이 ‘자기 사랑 개발’이다. 자기 사랑도 늘 닦아야 된다.

17. 행하기 전에는 힘들다가도 해 보면 쉽고, 힘이 오고,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된다.

18. <자기가 행한 것>은 ‘영’으로 영원히 지속되어 존재한다. 고로 영원히 누리며 기쁨으로 산다.

19.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다른 자들에게 장소를 빌려 쓰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느냐. 고로 성약역사 1000년 동안 쓰도록 만들겠다 하고 빈 몸으로 만들었다. 지금 온 자들은 그때 같이 안 해서 모른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 개발하면서 만들고 있으니, 지금 온 자들은 같이 만들어라. 쓸 때도 모두 가치 있게 쓰고, 모르는 자들은 교육시켜서 그 가치를 알게 해 주어야.

20.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최고’다. 구시대에는 별것을 다 한다 해도 이 시대와 비교가 안 된다. 무엇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는다.

21. 세상에서 각종 예술과 문화를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가다가 사라지는 꽃들의 수반(水盤)을 들고 났 빠지게 쳐다보며 부러워하느냐. 그들은 가다가 각종 고민, 걱정, 염려, 환란으로 신음하며 그 신음 소리가 지구를 울릴 것이다. 그러다 흑암으로 사라져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 허무하게 끝나는 한 인생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주가 부르는데 반항하고 생색내는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안 하니, 결국 자기 생각으로 그 운명이 좌우된다. 한 번 사망으로 가면, 더 이상 미련도 없다. 고로 하나님은 후에 10배, 100배 더 나은 자를 찾아서 부르신다.

22. 하루에도 지구 세상 수십만 명씩 죽어 간다. 거의 그 운명이 ‘사망의 흑암’으로 간다. 보는 자만 안다. 이들은 정신이 멍하고 혼수상태와 같아서 본인은 모르고 그 길을 간다. 정신과 생각이 멀쩡한 자가 보면 안타까운 것이지만, 본인은 모르니 그냥 그 길을 따라간다.

23. <새 역사에 와서 정신이 멀쩡한 자>들이 그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것이지, 그들은 정신이 멍하고 혼수상태에서 살기에 나름대로 살아간다. 뇌가 마비가 되어 사니, 잘 못 느끼고 살 뿐이다. 이런 자들에게 매달릴 것 없다. 너무 한 사람에게 시간 뺏기지 말고, ‘택한 자들’을 이끌어 와라. 세상에는 많은 자들이 있다.

24. 모르니,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편하게 산다. 근본을 깨닫고 보면 아니다. 때가 되어 닥쳐 보면 자기 생각과 다르다.

25. 지구 창조 이래, 하나님의 구원역사 6000년 만에 펴시는 이상세계를 아는 자만 맞고 ‘그 위치, 그 환경’에서 기뻐하며 산다.

26. 너 아니면 없느냐. 이미 온 자들과 잔치하기 바쁘다.

27. 네가 오면 ‘네 유익’이지, 섭리사에 무슨 큰 유익이 있겠느냐.

28. 하나님은 해 그늘에 서성대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29. <자기 때>가 지나면, 금방 어두워진다.

30. <사막의 나무들>이 뭐가 그리 영화롭겠느냐. 사막에 모래바람이 부니, 모래에 나무들이 묻혀서 겨우 끝의 가지만 숨을 쉬고 산다. 모래바람에 뒤덮이고 가뭄에 고통받고 산다. 이 시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의 운명도 그러하다.

31. 가나안 기름진 땅에서 자란 수십 아름씩 되는 나무들만 영광을 누리며 산다.

32. <망한 쪽의 세계>와 <흥한 쪽의 세계>는 ‘칠흑같이 어두운 진흙 구덩이 같은 삶’과 ‘대낮의 호화찬란한 삶’과 같

다. 전능자 품이 얼마나 큰지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라.

33. <지옥의 산>을 넘어가야 ‘천국 황금성 세계’다.

34. <광야의 산>을 넘어가야 ‘가나안 이상세계’다.

35. <월명동>도 앞산을 넘어야 ‘시대 하나님의 궁궐’이다. 반대쪽은 ‘광야 땅’이다. <고속도로>도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도로 쪽은 초당 수십 대의 차가 사용하는 땅이고, 반대쪽은 10년이 가도 그 누구도 밟지 않는 땅이다. 천국도, 지옥도, 세상도 그러하다. <섭리사 사람들>도 그 주관을 벗어나면, 영이 탄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 주관에서 사는 자만 알고 누리고 간다.

36. (하나님)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워도 나 여호와가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환경이든 ‘사막 신세’가 된다.

37.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고 생각한다.

38. <젊은 자들>은 좋아서 기뻐하며 소리 지르면, <나이 든 자들>은 싫다고 소리 지른다. 고로 하나님은 ‘구시대 노인들’과 ‘새 시대 젊은 자들’을 쪼개서 그 시대에 맞게 살도록 하셨다.

39. <위치>에 따라 ‘명승지’도 되고, ‘좋은 장소’도 된다.

40. <위치>가 ‘스위치’다. 어느 위치냐에 따라 좋은 장소도 되고 그렇지 않은 곳도 된다.

<2017년 10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의 세계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 육의 세계에서 보인다. 고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거나, ‘꿈’으로 보려고 할 필요가 없다.

2. <영의 세계>는 ‘거울로 자기 몸을 비추어 보는 격’이라면, <육의 세계>는 거울로 보지 않고 ‘직접 보는 것’과 같다. 고로 거울을 통해 볼 것이나 거울로 보는 것이지, 직접 눈으로 볼 것은 눈으로 보고 깨달으면 된다.

3. <육의 눈>을 가지고 생시에서 얼마든지 ‘실체’를 보며 계시 받으면 된다.

4. <육의 세계>는 ‘실체로 보이는 영계’다. 고로 <영의 세계>에서만 계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생시’에서도 보여 주니 ‘실체 존재물’을 통해 보며 실감 나게 받아라.

5.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받거나 <꿈>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육의 세계’도 하나의 영계이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낮에도 자기 자신이나 상대, 혹은 만물 등 ‘실체 존재물’을 보이시며 실감 나게 계시하신다.

6. <꿈>에서는 ‘육의 세계에서 보이지 못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이며 계시하신다. 가령 당장 뱀이나 사자, 호랑이, 치타, 코끼리 등 각종 동물을 보이며 계시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 ‘꿈’으로 보이며 계시하신다. <꿈>으로는 즉시 여러 만물을 보이며 계시하는 것이 가능하니, <꿈>에 ‘육의 세계에서 보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 보이시며 계시하신다. 그러나 굳이 ‘꿈’으로 안 해도 될 것은 ‘육의 세계’에서 자기가 보는 만물이나 상대, 혹은 자기 자신을 보이시며 깨닫게 계시하신다.

7. 생시에 다양하게 보일 만물이 당장 없는데 계시를 보여야 할 때가 있다. 이때는 낮에 회사나 학교나 거리에서 잠을 자게 해서 꿈으로 보일 수도 없으니, 삼위는 ‘뇌’에다 만물이나 사람 등 필요한 것을 떠오르게 하시어 “이와 같이 이러하다.”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하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계시를 줄 자’에게 밤낮으로 계시해 주신다.

9. <계시>를 받으려면, 간구하면 된다. 누구든지 <계시>가 필요하니, ‘주의 이름’을 대고 ‘이유’를 대고 말하여라. <계시>는 누구에게나 100% 주시니, 받아야 된다.
10.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받아 자기도 ‘신’같이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가 ‘행해야 할 일’을 모르니, 자기가 할 일을 깨닫고 ‘신’같이 행하도록 ‘계시’를 받아야 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지시’다.
11. <꿈>만 중심하지도 말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중심하지도 말아라. <계시>는 밤낮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각종으로 주신다. 고로 <계시를 받는 자>는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고 삼위와 대화하면서 ‘영감’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감동’으로 깨닫고 받아라.
12. 멍청하고 미련하면 계시를 못 받는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없이 순간순간 깨닫게 계시하시니, 받는 자가 지혜롭고 눈치가 빨라야 즉시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계시>를 ‘황금’같이 귀히 여겨야 계시를 받게 된다.
15. <계시를 못 받은 자>는 손해가 많이 갔다.
16. <육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잘 보이니,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계시하여 보이면 누구나 다 잘 받게 된다. 고로 ‘구구단’을 배우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듯이 다 배워야 된다. 철저하게 배우면, 능숙하게 되고 사탄에게 안 속는다.
17. 수학이든, 경제학이든 제대로 못 배우면 계산할 때 상대가 속이듯이 만물 계시나 꿈 계시 등 각종 계시도 제대로 배워야 안 속는다.
18. 자기가 계시를 받을 때 “네가 메시아다. 네가 시대 복직된 하와다. 네가 선생의 후자다.” 하는 것은 모두 자기 인식이나 자기 의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온 것이다. 잘못된 사고에 의해 사탄이나 귀신이 준 것들이다. 고로 이러한 것들을 받으면 주께 이야기해라. 이야기 안 하고 숨기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속닥거리는 자들은 다 악한 영들이나 귀신, 꾀는 영들에게 속는 계시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고서 ‘왜 내가 속게 그냥 뒀지?’ 한다. 처음부터 왜 주께 이야기를 안 했느냐. 매번 물어보아라. 주께 보고하면 들통 나니, 사탄이나 귀신들은 주께 이야기 못 하게 막는다.
19. <성령님이 주신 계시>는 선생에게 보고하고 전하게 한다.
20. <계시>도 하나의 ‘영계를 아는 학문’이다. <학문>도 배우지 않거나 모르면 속듯이, <계시>도 모르면 속는다. 고로 모두 ‘말씀’을 듣고 배워라.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하니, 안 속는다.
21. <계시하실 때>는 ‘자기가 늘 보고 잘 아는 만물’을 가지고 계시하신다. 자기가 늘 보는 사물이나 존재물로 계시하시고, 그때마다 쉽게 보이는 것을 들어 ‘비유’로 계시하신다.
22. 어느 때는 파리나 모기, 날파리도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데에 ‘계시의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가령 날파리는 잡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죽을 때까지 거슬린다. 잡으면 즉시 그 날파리는 끝난다. 이는 ‘사탄도 악도 멀해야 없어진다.’ 하는 계시다. 이같이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계시하신다.
23. <작은 곤충>이라고 ‘작은 것’만 계시하지 않는다. <큰 문제>를 놓고도 ‘작은 것’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된다.” 혹은 “이와 같이 안 된다.” 하시며 비유해 보이신다.

24.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수백만 가지의 ‘계시의 자료’로 사용하시며 그때마다 합당하게 계시하신다.
25. <만물 계시>도 간절하게 물어봐야 가르쳐 주신다.
2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큰 것이냐. 절대신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시해 주시니, 그리 크고 귀하다. 고로 크고 귀함을 깨닫고 대해야 된다.
27.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깨달으려고 할 때>는 삼위가 손수 계시해 주지 않으셔도 생활하면서 ‘지혜’로 무지를 깨닫게 된다. 이때 깨달은 것이 삼위와도 연관되고 온전한 것이라면, 삼위께 여쭙보아라. 그것이 맞는 것이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맞다.” 하신다. <자기 노력>에 의해,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도 그 역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다. 마치 학문을 공부하듯 ‘신앙 공부, 영적 공부’를 하며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깨닫게 하신다.
28. 스스로 깨달았어도 하나님에 관한 것, 깊은 것이 많다.

<2017년 10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인간이 ‘관리’만 잘하면 완전하다.
2. <자기 육체의 기능>을 보아라. 듣고, 보고, 호흡하고, 걸어 다니는 것 등 모든 기능을 보아라. 얼마나 완벽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관리>만 잘하면 완벽하다. 사람도 그러하고 모든 만물과 존재물도 그러하다. 이 계시는 화장실에서 깨달았다. 뇌의 생각에서 깨달으니, 환경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깨닫고 계시를 받는다.
3. <존재물>도 ‘관리’만 잘하면 완벽하다.
4. <월명동의 소나무나 돌, 잔디밭, 샘물>도 ‘관리’만 잘하면 천 년 동안 간다.
5. <사람>도 ‘관리’를 잘하면 완벽하다. 자기가 살면서 육도 혼도 영도 잘 관리한 대로,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함께 산다. 고로 모두 ‘관리’를 잘하여라.
6. 쓰는 만큼 관리하여라.
7. <자기 생명>도, <다른 자들의 생명>도 관리를 하려면 ‘수고와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된다.
8. <관리>를 생명시하여라.
9. <관리>를 안 하면, 죽는다.
10. <관리>를 안 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자꾸 고장이 난다.
11. 생활 관리, 피부 관리, 근육 관리, 관절 관리, 위와 폐와 심장 관리, 눈과 코와 입과 귀 관리, 손과 발 관리 등 모두 철저히 해야 된다. <자기 몸>을 귀히 보고 매일 관리해야 수한 전에 안 죽는다. 이같이 ‘신앙 관리, 영적인 것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
12. <관리>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자와 같이 정신일도 하여 앞뒤 좌우 살피듯이 관리해야 된다. 운전하는 중에는 운전을 쉬지 않듯이, 자기는 ‘자기 몸을 운전하는 자’이니 쉬지 말고 자기를 관리해야 된다. 안 하면,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13. <관리>는 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꼭꼭 해야 된다.

14. 운전하고 있는 자가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듯이, 관리는 어느 때나 늘 해야 된다.
15. 운전하는 자가 앞의 길이 꺾여 있으면 즉시 운전대를 돌리듯이, 자기 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 손을 대고 관리해야 된다.
16. 가령 지붕에서 물이 새는데 지붕 관리를 안 하고 방에서 물만 받아내면, 결국 천장이 다 썩어서 때가 되면 지붕이 내려앉는다. 혹은 지붕이 그대로 있어도 썩어서 냄새가 풍기니 살 수가 없게 된다. 게을러서 관리를 안 하면, 신앙도 이같이 된다.
17. 지붕에서 물이 새도 말 못 하는 지붕이 스스로 고치지는 못하니, 아는 자가 고쳐 줘야 된다. 이같이 <생명 관리>도 ‘본인이 스스로 하겠지.’ 하지 말고 아는 자가 해 줘야 된다.
18. 지붕에서 물이 썰 때 급하면 우선 비닐만 덮어 줘도 안 샌다. 그 후에 지붕을 뜯어내서 말리고 공사를 해서 ‘근본적인 것’을 고치면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19. <월명동에 세워 둔 돌들>도 수시로 보아라. 이제 약간 숙은 채 서로 짝 조이니 좌우로 쏠린 그대로 눌러서 튼튼한 것도 있지만, 그중에 숙어지는 밑돌로 인해 세운 돌도 숙게 되니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돌 하나만 끼워 넣으면 되는데 관리하지 않고 그냥 두면, 마치 절벽에 사람이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이 숙어지고 넘어지게 된다. 고로 누구든지 늘 보면서 관리다. 모두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하여라.
20. <관리>는 ‘관심’이다. <자기 안전>을 위해 ‘관리’하여라.
21. <암이나 각종 병>도 ‘미리 관리’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기 몸’인데 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병으로 생명을 빼앗기느냐.
22. 육도 혼도 영도 늘 관리다. <육>을 통해 ‘영’이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게 되니, 매일 자기 육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여라.
23. 육이든 영이든 관리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바로 망가진다.
24. <매일 몸부림치는 관리>다. 힘들어도 매일 관리해야 필요할 때마다 쓰게 된다. 고로 편하게 살게 된다.
25. 얼마든지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다.
26. <몸>은 평생 쉬지 못하고 24시간 매일 운행한다. 고로 매일 관리해야 된다.
27. <몸의 기능>이 멈추면 죽고, <관리>를 쉬면 바로 이상이 생긴다. 몸은 쉴 때 쉬지도 못하고 24시간 운행하니, 매일 관리해야 한다.
28. 자기가 ‘기본적인 관리’는 할 수 있으니 스스로 관리하고, 자기가 못 하는 ‘전문적인 관리’는 병원에도 가면서 하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자기도 관리를 하면서 자기가 못 하는 것은 ‘지도자의 관리’를 받고, ‘주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
29. 기본적으로 자기가 매일 쓰는 방이나 정원은 늘 청소하며 살듯, 자기 몸도 매일 쓰니 늘 관리해야 된다.
30. 밥을 먹으면 먹은 것을 깨끗하게 씻고 닦고 청소하듯이 자기도 이같이 관리하기다. 관리해야 제대로 존재한다.
31. 유리 상자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몸은 자체적으로 노폐물이 분비되니 시간이 가면 몸에 때가 쌓인다.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가만히 있어도 생각에 의해 ‘죄의 더러움’이 ‘몸의 때’같이 생긴다. 자기가 할 일을 안 한 것

이 죄가 되고, 게으른 것이 죄가 되어 쌓인다. 유리 상자 속에 있어도 때가 생기듯이 사람도 그러하니, 자기가 특별히 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늘 자기 몸을 씻고 관리하듯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하여라.

32. 어떤 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친구에게 목욕탕에 가서 같이 씻자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밖에서 일도 안 했고, 운동도 안 해서 땀도 안 나고, 일주일 동안 방에만 있었다고 하며 안 간다고 했다. 아무리 아무것도 안 했어도 때가 쌓일 것을 알고 아는 자가 같이 씻으러 가자고 한 것이다. 고로 그 사람을 따라가서 때를 밀었더니, 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비슷하게 때가 나왔다. 아무것도 안 해도 몸은 항상 가동하고 쓰니, 노폐물이 생긴 것이다. <죄>도 그러하다. 자기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어도 ‘죄의 때’는 삶에서 생긴다. 고로 <죄>에 대해 배우고 깨닫고 늘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된다.

33. <건강>도 그러하다. 자기가 특별히 암이 생기거나 큰 병이 생길 일을 안 했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자기 체질, 혹은 생각 등으로 병이 생기니 늘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암세포가 생길 때 처음에는 미세하다가 여드름만 하게 되고, 손톱만 하게 되고, 엄지발톱만 하게도 커진다. 자기도 늘 건강관리 하고, 초기에 ‘의학’으로도 관리해야 된다.

34. <관리>는 ‘관심’이다.

35.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성령과 성자와 함께 밤낮으로 관리하신다. <육의 세계>는 ‘물질세계’이기에 더 많이 관리하신다.

36. <영적인 것들>은 대부분 고장이 나서 관리할 것들이 없다. <영체>와 같이 건강 이상 없이 영원하게 존재한다.

37. <관리의 지혜>와 <관리의 정신>을 달라고 매일 기도함으로 ‘신적 관리의 지혜’를 받아라.

38. 매일 자기와 형제들을 관리해 주면, ‘관리의 달인’이 되고 ‘관리의 기술자, 전문가’가 된다.

39. 본인이 모르는 것이 있으니, 이는 ‘아는 자’가 이야기해 주고 도와주어라.

40. 자기가 자기 몸을 쓰고 만들어서 잘 아니, 모두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다.

41. <섬세한 관리>다.

42.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다.

43.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물어보아라. <인간의 지체>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숨을 몰아쉬며 산 너머로 피해 가시겠느냐. 물어보면, 산 너머 계시다가도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께 물어보아라.

44. 방에서 메뚜기나 여치, 베짖이 같은 곤충들을 기르다 보면 어떤 곤충은 뛰어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날아다니기도 한다. 섬세히 관찰해 보면,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고로 개성대로 기르고 대한다. 이같이 <사람 관리>도 그러하다.

45. 어떤 메뚜기는 잘해 주려고 손을 댔는데, 뛰다가 다리가 빠져서 해가 되었다. <생명 관리>도 손을 댈 필요 없이 본인이 할 것이 있는데 걱정된다고 하며 잘해 준다고 손을 대면, 메뚜기 다리가 빠지는 격이 되어 손해가 된다. <지나친 관리>나 <자기중심적인 관리>는 오히려 서로 손해다.

46. <본인이 못하는 것>만 도와주며 조심스럽게 관리해 줘야 된다.

47. 어떤 메뚜기는 너무 뛰어다니기에 ‘저러다 나가겠다.’ 싶어서 갑을 만들어 가두어 놓았다. 저녁에 보니 죽어 있었다. 답답해서다. 지나치게 관리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말씀하시길, “생명들 중에도 이 같은 생명들이 있다. 자

기가 뛰는 대로 그냥 두면, 제 갈 길을 알고 간다.” 하셨다.

48. 어떤 메뚜기는 귀엽다고 때마다 먹을 것을 줬더니, 옆에 있다가 밟혀 죽기도 했다. 또 어떤 메뚜기는 춤다고 늘 따뜻한 데 옮겨 주며 길렀더니 늘 거기 와서 살았다. 그런데 관리자가 관리를 너무 깊이 하니, 피곤했다.

49. 세상으로 나갈까 봐 가두어 놓듯 하는 관리는 오히려 답답해서 뛰어 도망가게 하고, 그냥 놓아두면 제 생각으로 크다가 선을 넘어간다. 고로 ‘선’을 넘지 않는 관리를 해야 된다.

50. <자기 주관적인 관리>는 오히려 해가 된다.<말씀 관리>다. 말씀 안에서 관리해야 된다.

<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2. 모두 좌우로 치우쳐서 말해도 주는 같이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서 대해 주니, 두 편 다 살리고 해결된다.

3. 모든 자가 너를 힐문해도 주만 바로 알고 행하면 된다.

4. 네가 잘못을 했든지, 형제들이 오해를 해서 그리 말하고 대했든지 주는 너를 그리 대하지 않으니 그러면 되지 않느냐.

5.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보고가 와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심에서 대해 주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어라.” 하셨다.

6. 어떤 자가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가 100% 잘못된 것은 거의 없다. 잘한 것도 있으니, 그것으로 대해 주며 잘못된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7. 만일 100%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잘하면 된다. <용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해 주시니, 육에 속한 것이나 형제끼리 풀면서 용서할 것은 본인이 용서해 주면 된다.

8. <용서의 주인>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편’이다. 고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9. 지도자들은 사람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에 서서 해결하여라. 이 사람이 잘했다고 이 사람 편에 서서 해결하면, 지도자가 왔다 갔다 좌우로 치우친 격이 되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심같이 온전하게 하여라.

10. <지도자>는 항상 중심에 서서 ‘공의로운 위치’를 떠나지 말고 행해야 된다.

11. <위치>가 그리 중요하다. <제대로 하는 것>이 ‘제 위치’다. 월명동 지역같이 갖춘 위치다.

12. 어떤 일을 놓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행하지 않고 자기 차원대로만 생각하고 행한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고한다. 보고를 받고 ‘잘못했다고 한 자’의 말을 들어 보면 다른 것이 많다. 어떤 보고를 받고 ‘잘못했다고 한 자’에게 왜 그리 말했냐고 물어보니,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했다고 했다.

13. 같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많다.

14. <구약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는 한 청년의 말만 믿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들이다. 고로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니 행한 대로 받아야 된다.” 하면서 역사의 반항자, 이단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구약인들에게 “나 여호와가 구약 때 예언한 자가 모세처럼 또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나 여호와가 지금 그를 욕으로 쓰고 말썽하고 행하니 거스르지 말고 그를 두고 따르라.” 하지 않으셨다. 또 하나님은 “그가 메시아다. 한 청년같이 보이지만 그리 보여도 만왕의 왕이다. 가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 보아라. 4000년 동안 나를 섬기며 따랐던 제사장들이 소경이니 창피하다.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그리도 눈치채지 못하느냐. 몰라도 정말 모른다. 몰라도 껌껌하게 모른다. 구약 종급 역사 4000년은 끝났다. 그러니 어서 그에게 가서 말썽을 듣고 따라라.”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종 차원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4000년 긴긴 역사를 고스란히 견디며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곧 간다. 나 여호와가 땅에서 이상세계를 펼 것이다. 삭막한 광야에 샘이 솟고 푸른 잔디밭에서 사자, 사슴, 뱀, 늑대, 치타, 표범 등 각종 짐승들과 오색 인종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 이상세계를 펼 것이다. 곧 시작된다. 기다려라.”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역사를 시작했어도 구약인들은 소경이 되어 메시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몰랐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거스른 것이다.

15.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으니 시작한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역사한다.”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며 살아온 대로 ‘시대’를 판단하게 하고, 평소 자기가 쌓은 의대로 ‘시대’를 보고 맞게 하셨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목이 꺾어져 ‘교만과 자만’으로 행하고, 종교의 핵인 ‘사랑과 공의’를 중심으로 행하지 않고 악육강식하는 ‘욕적인 법’을 사용하며 행하고, ‘각종 권위와 직책’을 권세로 삼고 행했다. 자기 직책이 있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게 하고 자기 위치가 되게 하여 행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절대 밝히지 않으시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행위들을 다 보셨다. 고로 하나님을 남용하면서 족속과 풍속을 따지며 살아온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염소나 여우, 늑대, 하이에나, 뱀같이 사는 자들’과 역사를 펴지 않으시고, ‘순수하고 물같이 부딪히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펴셨다.

16.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며,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 고로 그 마음이 물과 같아서 바위나 절벽과 같은 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흘러 내려오면서 사랑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말씀을 주면서 나타내셨다. 고로 그 시대에 ‘절벽같이 부딪히지 않고 물같이 살던 자들, 착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정화시키며 자녀로 대하고 사랑해 주며 역사를 펴셨다.

17.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는 자격이 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순수하고 착하고 어린아이같이 신앙을 하는 자가 없었다. 그 마음이 물소 가죽 같고, 거친 광야와 같았다. 그 시대가 모두 그러했다. 종들이니 얼마나 거칠었겠느냐. 고로 그들과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면, 변질되고 ‘자녀급’으로 변화가 안 되니 그들과 함께 절대 그 뜻을 펼 수가 없었다.

18.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든지, 외식으로 따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굴복하며 하나님만 우러러보았다. 땅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가뭄에 목이 타들어 가는데, 그들에게는 물 한 방울을 안 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오직 누가 큰 제물을 드리는지 보면서, ‘새를 드리는지, 염소를 드리는지, 양을 드리는지, 송아지를 드리는지’만 중신했다.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누가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만 쳐다봤다. 어떤 자가 1년 동안 제물로 ‘새’만 드리니, “저 사람은 1년을 봐도 새만 제물로 드리네.” 했다. 왜 그가 새만 제물로 드리는지 그 집에 한 번도 가 보지 않았다. 그는 새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암소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자였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작은 새 하나도 제물로 안 드리고, 제사 집행만 하면서 그 제물들을 다 먹었다.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시고 “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하셨다.

19. 자기 행위대로, 자기 질대로 ‘시대’를 받아들인다.

20. <종교>가 ‘그 시대의 마음’이 되어 행해야 되는데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 그 시대 정치도 사회도 그렇게 똑같이 되었다.

21. 예수님 때 유대 종교인들이 그러했듯이, 이 시대도 ‘구시대에서 기다리던 자들’이 그러했다.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따르든지, 순종하고 따르든지, 외식으로 따르든지 간에 자기 행위대로 대하고 살면서 형제들은 땅같이 취급하고 살았다. 결국 그 행위대로 자기 인식도 사고도 변질되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가 왔어도 한 명도 제대로 오지를 못했다. 그들과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면 변질되고 ‘자녀급’에서 ‘신부급’으로 변화가 안 되니 그들과 뜻을 펴지 않으시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권위나 직책도 모르고 오직 사랑으로 대하면서 사는 자들과 함께 ‘사랑의 역사, 휴거’를 이루셨

다.

22. 하나님은 구시대 역사에서 ‘신부급 역사’를 펴지 않으시고 새 역사에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구원역사 6000년 동안 말씀하신 ‘핵’을 다 이루셨다. <보낸 자>는 ‘물’과 같고 구시대인들은 ‘바위나 쇳덩이’와 같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물과 같이 흐르며 사랑을 베푸실 때 그들은 같이 흐르지 못했다.

23. 이 시대도 구시대 종교인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 정치도 사회도 똑같이 되었고 민족도 혈안이 되어 보낸 자를 대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공의롭게 다 갚아 주셨다.

24. <지상영계>에 가서 보면, ‘자녀급에 거하는 영들’이 너무 많다. 세상에서 산 대로다. <자녀급 역사>에서 이름을 휘 날리던 자들은 지상영계에서도 못 만나고 다른 영계에 가서 보면 거기에 있다. 거기에 가도, 그들의 권위 의식이 강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멀리서 쳐다봐야 된다. 그곳은 ‘지옥의 등반이’가 되는 곳이며, 좌우의 배경은 지옥에서 가끔 나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지옥 정원’이다. 거기서 굶은 쇠사슬에 묶여서 희망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 굶은 쇠사슬을 보니, 세월이 가서 바람으로 닳고 비가 내려 닳아야 끊어질 것 같다.

25. <하나님의 시대 사랑의 뜻을 이룰 자들>은 ‘어린아이’같아야 된다. <사랑>이 ‘황금 덩이’같아야 된다. 자기를 ‘하나님의 사랑 덩이’로 만들고, 모든 자들이 대하기 좋게 만들어라. 자기 욕도 영도 그리 만들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 행해야 된다.

26. 인생은 하나님도 메시아도 100% 다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구원도 이루고 휴거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과 메시아가 다 해 준다면 지옥에 가는 자가 있겠느냐. 다 해 줄 수 없으니, 하나님에 관한 것만 해 주고 나머지는 인간이 하게 하신다. 그런데 인간이 못 하니, 사망으로 가게 된다.

27. 누구든지 절대자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기를 만들고 행해야 구원도 받고, 사망을 벗어나게 된다. <전능하신 창조주>를 제대로 알아라.<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라. 알고 행하는 만큼만 욕도 영도 변화되어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고, 욕은 땅에서 받고 누린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0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자기 생각을 실천하면,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 행위대로 ‘낙’을 누리며 산다.

2. <악>도 본인이 좋아서 행하면 ‘낙’이 되고, <선>도 본인이 좋아서 행하면 ‘낙’이 된다.

3.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선 편’에서나 악으로 보지, 그들은 ‘악’으로 보지 않는다. 나름대로 하나의 ‘개성의 삶’으로 본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시니,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4. <악과 불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에게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면, 그 영이 ‘악의 세계, 캄캄한 흑암의 세계, 지옥 불바다’로 가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다. 고로 ‘만유의 법칙’과 같아서 자동적으로 그리된다. 하나 하나 따질 것도 없다. 마치 곡식을 타작한 후에 기계에 넣고 돌리면 돌이나 쭉정이는 빠져나가고 알곡만 남아지듯 한다.

5. 농부는 떨어진 돌이나 쭉정이를 하나하나 빼내면서 구분하지 않고 ‘기계’를 돌려서 알곡만 남아지게 한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면, 그것으로 끝낸다. 하나님은 이같이 인생도 대하시며 ‘하나님의 법’으로 돌리신다.

6. 하나님은 이미 메시아도 보내 주고, 그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며 먼저 깨닫고 안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해 주게 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시며 성령의 역사로 해 줄 만큼 다 해 주셨다. 그래도 싫다고 한 자들은 떠나갔다. 고로 하나님께 저 사람 좀 도와달라고 하면 말씀하시길, “나로서 할 일을 다 해 줬다.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 하신다. 하나님은 매일 깨닫게 해 주시며 할 일을 다 해 주셨다. 자기가 못 봐서 그렇지 다 해 주셨다는 것이다.

7. 지옥에 갔든지, 흑암에 갔든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더 이상 없이 해 주셨다. 알고 보면 사람을 보내 주고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때 복음을 들었어도 생각을 잘못하여 부정한 것이다. <생각>을 잘못된 것이 그리도 크다.

8.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장면이 보였다. 폭이 500m나 되는 큰 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 다리는 '통으로 된 큰 기계'였다. 사람들이 그 통 속을 거쳐서 어딘가로 가고 있었다. 그 통 속에 들어가 보니, 마치 곡식 타작 기계처럼 한쪽의 큰 구멍으로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나 돌들이 부서져 나오듯 나오고 있었다. 곡식 타작 기계처럼 부서져 나온 것들은 강물로 떠내려가거나 날아가고, 나머지는 강 건너편으로 갔다. 알고 보니, 이 기계는 '공의의 기계'였다. 거기에 들어가면 '불의'는 다 없어지고, '의'만 알곡으로 남아져서 생명권으로 갈라져 갔다.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신다 함이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종교든지 마치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듯 '공의의 기계'를 통과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일체 되어 온전한 사랑을 하며 의롭게 산 자만이 '알곡'으로 남아진다.

9.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니, 온전히 행하여라. 모두 주의 말씀을 듣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온전한 사랑으로 하늘도 땅도 대하며 의롭게 사는 삶이다. 이는 전능자의 절대 법이다. 고로 누구든지 안 하면, 안 된다. 해야 그 위치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

10. 황금 덩이를 한 덩이씩 주듯 모두에게 '자기가 행할 몸'을 줬다. 고로 누구든지 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주관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힘들어도 행하여라. 제대로 안 한 일은 안 한 대로 그냥 있고, 한 일만 만들어져서 남아지듯 <자기 몸을 가지고 행한 자>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지상영계에 가서 보면, 그 영들이 세상에서 자기 욕이 산 대로 거기에서도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다. 과격하고, 무지하고, 음란하고, 술과 담배를 하고, 이성애 빠져 산 대로 '영'도 그 생각과 행위대로 살아간다. 거기서 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버릇을 못 고쳐서 못 벗어나면, 때가 되어 더 악한 세계로 가게 된다. 그곳은 그전보다 100배나 더 고통을 겪는 곳이다. 지옥이다.

11. <지상영계>에는 무수한 영들이 산다. 이 세상에서 살던 자들의 영이 그곳에 가 있다. 그들이 사는 것을 보면, 상상을 못 하는 삶들이다. 이 세상의 삶과 다르다. 거기서 의를 행하며 산 자들은 한 단계 좋은 세계로 간다.

12. 실상 지상영계에 거하는 자들은 기회가 주어져서 한 번 살아난 자들이다. 지옥으로 갈려 가지 않고 지상영계에 있으니 한 번 살아난 것과 같다. 자기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의를 행하지 않은 영들은 아예 죽음의 지옥으로 갔다.

13. <지상영계에 있는 영들>은 '두 갈래 길'로 갈려 간다. 죽음을 맞고 '사망의 길'로 가는 영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으며 의롭게 살아서 '생명권'으로 가는 영들이 있다. 지상영계에서 생명권으로 가는 영들은 세 번을 차원 높이면서 살아야 '지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한 번에 천국에 간 자들'이 사는 세계로 간다. 그런데 지상영계에서 그리도 길고 긴 세월 동안 의롭게 살면서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가는 자는 아주 드물다. 거의 자기가 산 대로 살아간다. <지상영계>에서 살다가 생명권으로 부활되어 한 단계 높은 세계에 올라가서 살면, 70% 이상 자신 있게 살아간다. 이 곳은 '선영계'다. <선영계>는 '선한 자들이 사는 곳'으로,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거하는 세계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 차원의 세계에 온 것과 같다. 그리고, 지상영계에서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고 산 자는 메시아가 있는 대로 부활되어 가서 같이 살게 된다. 선영계에서 한 차원 더 높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면 두 번째 부활되어 낙원급 영계에 가서 살고, 또 한 차원 더 높여 이 시대에 보낸 자까지 믿고 의롭게 살면 세 번째 부활되어 천국급 영계로 가서 산다.)이미 이 광경을 보고, 30년 전부터 도표로 그려서 전하고 있다.

14. <시대적인 부활>도 구약 1차 죽음과 1차 부활이 있고, 신약 2차 죽음과 2차 부활이 있다. 성약역사는 3차 부활로 살아나는 시대이고, 부활을 못 한 자는 3차 죽음을 맞고 끝나기도 한다. 이같이 <지상의 역사>도 동일하게 해 왔다. 이를 알고 영의 세계에 가서 보면 안다.

15.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

16. 차원을 높이는 기쁨이다.

17. <한 차원 낮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한 차원 높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예 딴 세계다. 배우는 것도, 보고 듣는 것도 차원대로다.

18. <지상에서 살 때>는 ‘한 차원’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고 산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한 차원’이 너무도 다르다. 긴 세월 동안 공적을 쌓아서 올라간다. 자기를 빨리 만드는 자는 보다 빠르게 올라가지만, 쉽지 않다. 자기를 만드는 대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 마치 자기가 돈을 벌어서 건물을 짓는 데 한 세월이 가듯이,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데 한 기간이 간다.

19.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따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차원을 높이고, ‘신약’에서 ‘성약’으로 차원을 높이듯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한 기간을 두고 정한 때까지 자기를 만들지 못한 자는 한 단계 내려가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자기를 만든 자는 ‘생명권’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여 올라가서 산다.

20. <차원을 높이는 것>도 각자 개성대로 높인다. 큰 자는 크게 차원을 높이고, 작은 자는 작게 차원을 높인다. 그러니 모두가 똑같지 않다. 한 주관권에 살아도, ‘상, 중, 하’로 나뉜다. 가령 재벌들은 자기 경제를 한 차원 높이기 그만 큼 더 힘들다. 개인은 그에 비해 자기 경제가 작으니, 한 차원 높이기 쉽다.

21. 매일 자기 위치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해 더 열심히 행하며 목적을 두고 실천하여라. 몇 번만 해서는 안 된다. 옛집을 헐고 더 좋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힘들고, 한 기간이 걸린다. 힘들어도 한 차원을 높이면, 마치 계급이 올라가서 더 받고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되는 만큼 더 주신다. 그리고 차원을 높여 올라갔으면, 그만큼 전보다 더 행하기다.

22. 차원을 높이면, 마치 세상에서 하류층의 삶과 중류층의 삶과 상류층의 삶이 각각 먹고 쓰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듯이 다르다. 그 터전 위에서 행할 일들을 하기에 그 행위도 다르다. 이같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고,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23. 배우고 알고 행하여라. 자기중심으로 행하면, 영도 육도 육성으로 변질된다. 고로 주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24. 주와 하나 되어 하지 않으면, 자기는 잘했다고 해도 후에 보면 그 육도 영도 다른 주관권에 가 있다. 절대 <땅>에서 ‘주’와 일체 되어 행하여 이루어지는 대로 그와 같이 <하늘>에서도 ‘삼위’와 일체 되어 살아간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법’이다.

25.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행하면, 하는 것마다 기쁨이다.

26. 새 시대에 살아도 주와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영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절대 ‘하나님의 법’이다. 어떤 자도 용납이 안 된다. 절대 천법을 안 지키면, 자기 영의 형상이 천국 황금성의 영의 형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27. <세상의 존재물>은 만드는 대로 만들어진단다. 제대로 안 만들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단다. 가령 집을 짓는데 문을 안 만들어 놓으면 집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이다. 문틀을 재서 문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같이 인간의 육도 영도 그러하다.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살아 있는 존재>는 스스로 움직인다.

2. 그 생각은 그때뿐이다.

3. 하나님은 ‘생각’을 움직이신다.

4. 하나님은 ‘인간의 기억 신경’을 다스리시며 인간이 하지 못하는 생각을 주기도 하시고 잊어버리게도 하신다.
5. 하나님은 ‘육’으로 안 통하시고 ‘인간의 뇌’를 가지고 통하신다.
6. 하나님은 전하실 것을 ‘뇌의 기억하는 곳’에 전달하시어 기억나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
7. <육적인 세계>는 크게 ‘듣거나 보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알게 되고, 또는 ‘몸에 닿는 것’이 뇌에 전달되어 알게 된다.
8. <영적인 세계>도 ‘생각의 눈’으로 보거나 ‘영이 닿은 것’이 뇌에 전달되어 알게 된다.
9.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전달하실 때 ‘생각의 눈’으로 보게 하시거나 ‘영음’을 듣게 하여 전하신다. 이것을 뇌가 받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는 환상이나 꿈으로 보이기도 하시고, 느낌으로 느끼게도 하신다.
10. <육의 것>도 ‘뇌’로 받고, <영의 것>도 ‘뇌’로 받는다.
11. 어느 때는 영의 것을 ‘영’으로 받기도 하고, ‘꿈의 혼’으로 받기도 한다.
12. <육의 것>은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느낀 것을 ‘뇌’에 전달되게 하시어 그때마다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도 특별한 때가 아닌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14. 사람들끼리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는 밑에 있는 자가 먼저 말을 해야 짧게라도 대답하고 대화한다.
15. 사람과 통하려면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듯이 해야 하니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또한 사람들이 보는 ‘만물’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신다.
16.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야 자신의 뇌도 생각도 ‘전달받을 여건’이 된다. 고로 하나님은 ‘깨달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때마다 전하실 것을 전달하신다.
17.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알고 확실히 배워야 된다. <안 배운 자>는 자기 차원에서 하나의 생활로 알고 생각한다.
18. 하나님도 ‘뇌’로 전달하시고, 사람도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다 ‘뇌’로 전달받으니,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모른다.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듣고 보고 느낀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
19. 자기 스스로 듣고 보고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생각’으로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사람들은 거의 잘 모른다. <육에 속한 자>는 자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따르며 삼위와 주와 생각이 일체 되어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과 ‘삼위께서 천사들을 통해 행하심’을 안다.
21. <육에 속한 것>도 모르면 배워야 알듯, <하나님에 관한 것>도 배워야 안다.
22.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도 모르면, 스스로 해서 된 줄 안다. 이 같은 사고를 가지고 천지 만물도 스스로 만들어지고 존재한 줄로 안다.
23. 월명동의 돌, 나무, 호수, 운동장, 건물 등이 다 스스로 그리되었느냐. 마치 태양이 이 세상에 필요한 목적이 있어

서 존재하듯, <월명동>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시대 사명자를 쓰고 만들었다. 이같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해야 될 목적’이 있어서 친히 구상하시고 만드셨다.

24.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어 목적을 두고 행하심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땅에서 육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면서 갖가지로 깨달으며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그 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기뻐 산다.

25.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것도 믿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구원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세계’에 오지 못하게 하신다. 고로 그 영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아름다운 천지 만물과 천국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지옥 세계’로 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고, 또한 ‘지옥 불바다,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의 세계’로 가서 그 세계만 보며 산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불신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 죄값이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그들의 행위를 안 믿으신 것이다.

26. 하나님은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어 말씀하시니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는지 배우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여라.

<2017년 10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 없이 놀며 지루하게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려고 투자를 안 한다.
2. 사람은 ‘시간’도, ‘몸’도 안 쓰면, 그날그날 늙어 사라진다. 행해 놓으면 남아져서 쓰고, 그것이 ‘희망’과 ‘복’이 된다.
3. 매일 ‘그날 해당되는 것’이 온다. <그날 해당되는 것>은 그날 행해야 된다. 그래야 행한 것을 가지고 계속 귀히 쓰게 된다.
4. <행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행한 일’과 함께 남아 있다.
5. <시간>을 안 쓰고 그냥 두면 사라진다. 한 시간을 그냥 두면, 한 시간이 지나서 사라진다. 한 시간이든, 하루든 그만큼 일을 해 놓으면 평생 남아진다. <행한 시간>이 ‘존재물’이 되어 남아지고, 그것을 자기가 쓰게 된다.
6. <한 시간>을 두고도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귀하게 보내도록 기도하여라. ‘시간의 귀함’을 깨닫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께 간구하여라.
7. 가령 한 시간을 가지고 작은 나무를 심었다 하자. 그러면 그 ‘한 시간’이 ‘나무’로 남아져서 나무를 키우는 대로 쓰고 빛이 나게 된다.
8. <시간>을 귀히 쓰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구상한 대로’ 시간을 써라.
9. <1분>이라도 쓰는 자에 따라 ‘만 원’도 되고, ‘십만 원’도 되고, ‘백만 원’도 된다. <쓰는 자>에 따라 ‘귀함’이 좌우된다.
10. 어느 때는 작사 작곡을 위해 생각을 집중하다가, 순간 몇 초 만에 가사를 받을 때가 있다. 가사를 쓰고, 하나님이 곡을 주시어 부르면 불과 10분에서 20분 만에 한 곡을 만들기도 한다. 이같이 시간을 귀히 쓰며 늘 생각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순간 하게 된다.
11. <시간을 귀히 쓰는 자>만 ‘시간의 가치’를 깨닫고 귀히 쓰게 된다.
12. 육도 혼도 영도 ‘시간’을 귀히 써서 형통케 하고, ‘차원 높은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게 하여라.

13. 부지런히 365일 행하여라. 네가 원하던 것이 언제 어느 날 이루어지게 될지 모르니, 매일 네가 원하고 바라던 일을 생각하며 시간을 귀히 여기고 행하여라.
14. <하나님 앞에 큰 죄>는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와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은 죄’다. 하나님도 주도 성령의 감동을 주며 말씀하셨다.
15. 매일 정신 차리고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 ‘좋은 것’을 많이 놓친다.
16.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밭에 묻힌 귀한 보화’와 같다. 자기가 신경을 안 쓰면 그날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후에 찾으려고 그리 애를 쓰고 애간장을 태운다.
17. 매일 ‘말씀’으로도 자기 할 일을 생각나게 하니, ‘말씀’을 잘 들어야 알게 된다.
18. <할 일>을 그리 찾다가 생각이 났는데 귀하게 안 보고 그때 즉시 행하지 않으니, 뇌에서 잊는다. 뇌에서 잊으면, 아예 생각이 안 나서 못 하게 된다.
19. 마음먹고 하면, 어떤 일은 ‘1분’이면 하고 어떤 일은 ‘몇 초’면 할 수 있는데 할 일 없이 놀면서도 안 한다.
20. 몇 초면 한다고 하니, “그런 일을 해 봤자 특별히 표도 안 나고 유익도 없다. 귀찮다. 몇 초 만에 할 일이 뭐지? 몇 초 만에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 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가령 길을 가다가 걸리는 돌을 발로 툭 차서 거두어 내면, 그 길을 가는 자마다 편하게 간다. 이는 ‘1초’도 안 걸리는 일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다른 큰일도 실천하게 된다. 고로 엄청난 ‘삶의 유익’을 준다.
21. 어떤 것은 ‘몇 초’동안 생각하고 구상을 받아서 ‘1분’만에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더니 작품이 되었다.
22. <글>을 써 놓고 그 줄에서 틀린 것을 고칠 때 ‘몇 초’도 안 걸린다. ‘1초’면 고친다. 안 고쳐서 읽는 자가 틀린 대로 읽고, 청중들이 상상도 못 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같이 ‘1초’에 할 일이 많다.
23. <월명동>에도 ‘1초’로 인해 만든 작품이 있다. 사람들이 신화같이 보면서 1000년 동안 두고두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해 달라고 하며 늘 생각했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내 생각을 아시고 ‘1초’만에 행한 일이 있다. 당시 중장비로는 100톤, 150톤 정도의 큰 돌을 갖다 놓을 수 있었는데, 그때 선생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보고 아주 놀라서 까무러치도록 수백 톤짜리의 큰 바위를 가져다 놓는 표적을 일으켜 달라고 했다. 일반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 하는 표적을 구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다른 자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들어도 이해를 못 하면, 선생만 이상하다고 할까 봐서다. 그러던 중 한참이 지나고 이때 했던 생각이 났다. 한참이 지났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행하시니 인간의 한계가 있고, 중장비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아예 될 수가 없는 일이다. 말이 없으시니 안 되나 보다.’하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안 되면 100톤이 넘는 것도 괜찮는데...’ 하며, 그래도 이왕이면 500톤짜리 멋있는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때는 1990년대 초쯤이다. 이때 돌을 쌓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길, “저 밭에 있는 돌을 파내 보아라.” 하셨다. 이 말씀이 ‘1초’도 안 걸리고 마음에 들렸다. 그리고 밭에 있는 작은 박스만 한 돌을 파 보았다. 돌에 흠이 안 나도록 하루, 이틀, 한 달 동안 파다 보니 그 돌은 ‘땅에 박힌 돌’이었다. 이때 파서 나온 부분만 500톤 정도 되었다. 파낸 곳을 보니, 그 모양이 ‘낙타 형상’이었다. 마치 조각가가 깎은 것같이 목과 얼굴, 몸통이 모두 ‘낙타 형상’이었다. 결국 이 바위는 자연성전의 대결작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같이 하나님은 ‘1초’에 성령과 성자와 함께 큰 일을 하신다.
24. 하나님께서 ‘1초’에 시키신 일을 몇 명이서 하면서 ‘한 달’이 걸렸다. 그것도 장비를 이용해서 그 정도 걸렸다. 결국 1000년이 가도록 보고 구경하며 ‘하나님과의 사연’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표적의 역사>다.
25. <원하는 것>을 자꾸 간구하여 표적을 일으켜라.

26.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고 귀히 보아라.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수천 톤, 수만 톤짜리 바위를 예비해 놓으셨다. 비행기로 실어다 놓은 것같이 월명동 산에 그와 같은 바위가 있으니 표적이다. 하나님은 사 와야 할 것은 사 오게 하시고, 땅에서 파낼 것은 땅에서 파내게 하시어 사 오지 않고도 제자리에서 이 같은 ‘표적의 역사’를 만드셨다. 모두 생각하면 할 일이 많고 많다.

<2017년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산 자>는 ‘현재’ 움직이고 행한다.
2. <과거>에 살아서 활동했어도 ‘지금’ 행하지 않으면, 죽은 자다.
3. <현재>에 살아서 행해야 ‘과거’도 빛나게 되고, ‘현실’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4. <사람의 뇌>는 기억이 나는 그 순간에는 마치 태양을 보듯 또렷하나, 기억에서 사라지면 암흑과 같아서 전혀 생각이 안 난다.
5. 흔히 기억할 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난 것을 기록하게 된다.
6. 기억났을 때 기록해 놔야 된다.
7. <이명 소리>는 신경을 쓰거나 몸이 약해지면 난다. 이명으로 인해 기억력 감소가 온다. <해결책>은 ‘기억날 때 기록해 놓고 보는 것’이다.
8. <이명>은 ‘꿈에서 본 것’도 잊게 한다. 기억에 지장을 준다.
9. <기억하는 데>는 ‘기록’이다.
10. <기억하는 것>에 ‘습관’을 들여 놓으면 기억이 잘된다.
11. <기억할 때>는 잡념을 버리고 정신일도 하는 것이다.
12. 한 번 잊으면 아예 기억이 안 나게 되니, 잊기 전에 중히 여기고 ‘글로 기록하기’다.
13. <뇌>는 ‘백지장에 기록한 것’만 못하다.
14. <뇌>는 금방 보고 기억했다가도 다른 것에 집중하면 금방 잊는다. 고로 ‘백지장에 기록한 것’만 못하다. <뇌 기록>은 바로 사라진다.<백지장 기록>은 못해도 100년, 1000년은 간다.
15. <기록자>가 ‘천재’보다도 더 낫다. <기록자>는 ‘기억의 천재’다.
16. 스마트폰에 기록하니, 모두 그리 기록한 대로 알고 살게 됐다. 스마트폰에는 뇌보다 더 많은 것이 기록되고, 스마트폰은 뇌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한다.<뇌>는 충격을 받으면 마치 기록해 둔 종이가 물에 젖듯이 ‘뇌의 기억’이 사르르 사라진다.
17. <뇌 기억>을 믿지 말고 ‘글 기록’을 믿어라.
18. 하루에 수시로 ‘몇 초’씩만 운동해도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같은 큰 병에 안 걸린다.

19. 하루에 수시로 ‘몇 초’씩만 대화하고 기도해도 신앙이 죽지 않는다.
20.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시간에 쫓겨서 안 될 때는 그 ‘영’을 써서 목적인 일을 집중하여 행하게 하신다.
21. <사람의 기억 세포>는 눈으로 보거나 들은 것도 마치 차 타고 순간 지나가듯 순간만 기억했다. <사람의 기억>은 볼 때만, 들을 때만 기억되는 것이 많다.
22. 신경을 쓰면 자주 잊는다.
23. 아무리 귀한 일도 행할 때는 평생 안 잊을 것 같아도 어떤 것은 ‘1분’을 안 넘기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어떤 것은 ‘1초’도 못 가서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24. <기억>은 마치 밤에 보이는 반딧불같이 순간 깜빡하고 사라진다. 고로 기억날 때 즉시 기록해야 된다.
25. 기억났을 때 순간 빛같이 기록하기다.
26. 앞의 잠언을 다 쓰고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한 마디 말씀하신 것’을 두고 계속 잠언을 쓰고 있다. 사람의 생각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27. <잠언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잠언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풀어서 써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다. 다른 말이 된다.
28. <하나님의 말씀>은 ‘천 가지’를 ‘한 마디’로 하시면서 천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면, 한 가지만 깨닫게 된다.
29. 하나님은 인간을 평생 봐도 기쁘도록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30.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평생 봐도 기쁘게 창조해 놓으셨다. 이 잠언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묻고 대화할 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사람을 진짜 잘 만들어 놓으셨다고 깨닫고 말하니, 하나님은 “나 여호와와는 말씀이니라.”하셨다.
31. <전능자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사람의 말’이 되고 만다.
32.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의 말씀>에 자기 말을 섞으면, ‘자기 말’이 되어 버린다.
33. 가령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 다른 자가 거기에 자기 의향으로 그림을 더 그리면 그 사람의 그림이 된다. 다만, 원 작가가 그에게 소나무를 그리라고 해서 그렸으면, 그것은 원 작가의 의향이니 원 작가의 그림이 된다.
34.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표현하시고 단어를 쓰신다. 불필요한 것은 표현하지 않으신다.
35. 가령 자기가 사랑해야 할 자면 하나님은 “사랑하라.” 네 자만 말씀하신다. 다른 말은 더 안 넣으신다. 본인이 그 내용과 사연을 알고 있으니 더 말씀하지 않으신다.
36. 하나님이 “기록해라.” 하시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받는 자만 알고 기록한다. 고로 기록자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글로 기록해 두고 알게 한다.
37. 가령 하나님이 “맞다.” 하고 두 자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무엇이 맞는지 모른다. 그 말씀을 받는 자밖에 모른다. <받는 자>는 하나님이 “맞다.” 하신 내용을 알기에 “맞다.” 하고만 말씀하셔도 안다.<성경>도 그러하다. 역사가 가도

하나님이 인봉해 놓으신 것은 거의 대부분 모른다. <인봉한 것>은 그 ‘주인’이 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알게 된다.

38. 성경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 한 것도 그 당세 때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봤으면 알았다. 그것을 알고 써 놓지 않으니 각종으로 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욕으로 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 그에 해당되는 것은 다 안다.

39. 이치가 안 맞으면 모두 아니라고 한다. 거짓은 앞뒤가 안 맞다. 고로 결국 드러난다. <성경>도 앞뒤가 안 맞게 풀면 틀린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의 욕신은 하늘나라로 못 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욕이 부활되어 욕이 하늘로 휴거된다고 하니 그 역시 진리와 맞지 않다. 고로 거짓이다. 성경에 ‘욕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다.

40. 미국에서 UFO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등학교 때 깨닫고 안 것을 말해 주며 전혀 없다고 했다. 사진을 보여 주기에 조작한 것이고, 모두 거짓된 것들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다. 세상에는 거짓을 믿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 거짓을 믿고 행하다가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왔지?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잘했는데 왜 실패했지?” 한다. <거짓된 것>은 수고하여 열심히 했어도 안 되고, 수십만 번씩 절을 했어도 안 된다. <참>이면, 고생해도 이루어진다.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가치를 깨닫게 되어 귀히 여기고 그로 인해 기쁨도 사랑도 하게 된다.

2. 감사해야 시동이 걸린다.

3. 감사하면 ‘그릇된 인식관’이 온전하게 뒤바뀐다.

4. 감사하면 인식의 방향이 달라져서 ‘온전한 방향’으로 보기 때문이다.

5. <감사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격이어서 온전히 ‘자기 것’이 되게 한다. 고로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

6.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 ‘약점’만 보게 된다. 고로 가치를 모르고 버리게 된다.

7. 감사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까이 보고 자세히 보게 된다. 고로 제대로 보게 된다.

8. 감사하니, ‘주신 자’가 그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신다.

9. 감사하면 좋아서 받고 쓰게 되니, 그때 가치를 더욱 알게 된다.

10. <감사>와 <영광>이다.

11. 가령 ‘낮’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받았을 때는 ‘근본의 가치’를 다 알 수가 없다. 낮으로 풀을 베고, 곡식을 베고, 나무도 하며 각종으로 써야 가치를 알고 그로 인해 얻으니 귀함을 안다. 얻으면 얻은 것이 없어질 때까지 쓰게 된다. 고로 얻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12. <만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쓰기다. ‘매일 감사’다. 가령 낮이 없어서 손으로 나무를 꺾고, 손으로 풀이나 곡식을 자른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고로 ‘받은 것’을 쓸 때마다 감사하라.

13. 감사해야 자꾸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고로 더 보람 있게 쓰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상이나 물건’을 만나서 직접 주지 않아도 사람을 시켜서 주면 직접 준 것과 같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아라. 알수록 삼위는 직접 역사하신다.
16. 가까이 있어도 자기 마음과 생각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7. 감사하니 깨우쳐 주셨다.
18. 사람이 사랑을 하는 데도, 살아가는 데도 ‘느낌’이다.
19. <느낌>이 뻗뻗하면, 손도 마음도 잘 안 가진다.
20. 가령 어떤 물건이 거칠면, 손이 가기도 전에 거친 것이 느껴져 오니 마음으로도 안 좋게 본다.
21. 부드럽고 좋으면, 쳐다만 봐도 좋은 것이 느껴져 온다. 그러면 손으로도 만지고 싶다.
22. <작품>도 거칠면 손이 안 가진다. 느낌이 안 좋기 때문이다. <사람>도 성격이나 행위가 거칠면 쳐다만 봐도 느낌이 안 좋고 싫은 것이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사의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시며,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시니 그 느낌이 좋고 부드럽다. 가까이할수록 그 느낌이 어떤지 느껴져 온다.
24. <삼위의 사랑>이 ‘느낌’으로 온다.
25. 어떤 자는 말이나 행실, 성격이 ‘아기 살’과 같고, 어떤 자는 ‘늙은 자’와 같고, 어떤 자는 ‘닭살’과 같고, 어떤 자는 ‘짐승 털’과 같이 거칠다. 그 사람의 말이나 행실, 성격대로 그 느낌이 느껴져 온다.
26. <마음>과 <행위>가 부드러운 자가 되어라. <휴거된 자>는 그 마음과 행위를 보면 부드러움이 더욱 나타난다.
27. 결혼했어도 거칠고 무서우니 이혼한다.
28. <성격과 마음>이 ‘가시방석’ 같으면,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것이다.
29. <월명동>도 개발 전에는 너무나도 거칠었다. 가시방석과 같았다. 고로 개발하여 젊은 여인의 살결같이 만들어 놓았다.
30. <인생 다듬기>다. 마치 집을 지을 때 거친 나무를 다듬듯이 다듬기다. 바위나 돌도 땅에서 캐서 곱게 다듬으면 유리같이 빛이 난다. <천국>은 ‘마음과 행위’가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워야 들어간다.
31. <천국>은 ‘거친 영들’은 단 한 명도 못 들어간다.
32. 집을 지을 때 나무를 베서 다듬지 않으면, 그런 나무는 집 짓는 데 단 하나도 쓰지 않는다. <천국>도 그러하다. ‘다듬지 않은 영’은 단 한 명도 못 간다.
33. <성령>같이 부드러워라. <물>같이 부드러워라. <물>은 부드러워도 강한 바위도 돌도 모두 매끈하게 깎아 놓았다.
34. <바람>같이 부드러워라. 그래도 그 바람이 위력 있고, 칼날같이 강하다.

35. <마음과 성격과 행실이 부드러운 자>가 더욱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가까이 가게 된다.
36. <천국>은 '정말 부드러운 세계'다.
37. <황금성 천국>은 쳐다만 봐도 느낌이 파도를 친다.
38. <사람 몸의 곡선>도 부드러워야 아름답고 신비하다. <산>도 능선이 부드러우면 험하지 않다.
39. <구시대 구약인들>은 무서운 성격과 칼날 같은 성격으로 '사랑의 메시아'를 대하다가 결국 그를 죽이고 사막 같은 광야 벌판에서 벌을 받고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
40. <주>는 '부드러운 자,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간다.
41. <지옥>은 '무섭고 거친 성격, 암벽 같은 성격을 가진 자들'이나 '악한 행위와 죄의 행위를 한 자들'이 그 행위를 회개치 않고 간다.
42. <음식>도 부드러워야 가까이한다.
43. <피부>도 부드럽게 하려고 각종 좋은 화장품을 쓴다. <마음과 생각과 행실>도 '성령의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부드럽게 만들어라.
44. <거친 도로>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도 돈을 들이며 공사를 한다.
45. 부드러울수록 '느낌과 감동'이 최고로 온다.
46. 성격이 거칠수록 자기 피부에다 문신을 하고 무섭게 행한다.<문신>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죄'로 본다. 정상이 아니다. <천국>에 '문신한 자'는 한 명도 못 간다.
47. 섭리사 안에서도 문신한 자들은 결혼을 안 시킨다. 자격이 안 된다.
48. 문신을 못 하게 매일 기도한다. 과격한 자, 폭력과 무력을 행하는 자,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9. <문신>은 두려움과 무서움, 혐오감을 준다.
50. <하나님이 주신 몸>에 합당치 않게 손을 대면 누구나 '하늘의 운'이 돌아간다.
51. 몸에다 뱀이나 괴물 같은 흉한 것들을 새기거나, 혹은 아무리 순한 양이나 아기를 새긴다고 해도 문신하는 자는 모두 정상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들이다.
52. 섭리사에서 의료를 목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빼고, 눈이나 코, 얼굴 등에 손을 대는 자들은 모두 자기 손해다.<자연석>을 좋게 만든다고 손을 대면, '인조석'이 되고 만다.
53. <성자바위>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놓으니, 4개의 각도에서 모두 형상이 보인다.
54. 선생이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손댄 자는 '하늘의 운'이 돌아가서 정반대로 갔다. 사랑하는 자가 싫어하니 그리된 것이다.
55. 어떤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 얼굴의 개성을 칭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수술을 하고 왔다. 고로 '하

늘의 운'이 돌아갔다. 이제 영원히 그에게는 “눈이 이쁘다.” 안 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

56. <하나님이 주신 개성>이다. 고로 ‘하나’밖에 없다. 혹여 눈썹이 눈을 찌르고 잘 안 보여서 길을 못 걸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니 허락받고 하는 것이다.

57. 선생은 내 눈 한쪽이 작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다. 고로 기도하니, 눈이 커졌다. ‘자연미’를 갖춘 눈이 되었다.

58. <성형>은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이니 속지 말아라.

59. <월명동 산맥들>을 안 자르듯이 자기의 ‘미의 맥, 개성의 맥’을 자르지 말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60. <천연 굴>이 좁아서 기어 다녀도 그대로 두면 ‘자연의 미’와 ‘신비한 뜻’을 나타낸다. 다니기 좋게 만든다고 길을 내면 다니기는 좋으나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사라진다. <사람>도 그러하다.

61. <개성의 아름다움>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62. <월명동>도 지구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런 곳이 없다. 만일 좁다고 뒷산과 옆 산을 없애고 평지로 만들었으면, 백보 좌 형상도 없어지고 각종 형상과 모양도 없어져서 가치가 없게 된다. 평지는 어디든 많다.

63. 사람의 눈 형상, 코 형상, 얼굴 형상 모두 ‘개성’이다. 성형수술로 돈을 벌려고 하는 상술에 속지 말아라. 정말 해야 되는 자만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허락을 받고 해라.

64. <월명동>은 ‘하나님이 꼭 손을 댈 곳’만 닦고,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두었다.

65. <천연 굴>은 거칠어도 부드러운 것으로 본다. ‘작품의 미’로 보기 때문이다. <암벽이나 절벽으로 된 산>도 ‘작품의 미’로 본다.

66. <가치>와 <미>로 보고 “부드럽다.” 한다.

67. 부드러워야 ‘감동과 느낌’을 많이 준다.

68. <고기>도 역센 부위는 값이 헐하고, 부드러운 부위가 비싸다.<소고기>도 최고 부드러운 부위는 전체 중에 아주 조금이다.

69. <부드러운 자>가 ‘부드러움’을 만든다.

70. 사탄도, 인사탄도 쫓을 때는 부드럽게 위장하고 쫓는다. 쫓 후에는 괴물로 변하여 각종 무기와 창과 칼로 대한다.

71. <아름다운 것>은 부드럽다.

72. <월명동의 산>도, <자연성전>도 부드럽다.

73. 성령님은 ‘감동’으로 부드럽게 대하신다.

74. <사랑>은 부드럽다. <미움>은 거칠다.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해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이치’를 말하며 성령과 대화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이해를 잘하는 것이니 생각이 집중되고 잘 통한다.
2.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대화를 꺼내라. 자신이 감사하며 깨닫고 마음이 열렸으니, 성령도 이야기하기 좋고 잘 통하게 된다.
3. 상대가 못 깨달았으면, 그 단계의 것은 이야기 못 한다. <못 깨달았다는 것>은 ‘못 본다는 것’이다.
4.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
5. 안 보고 있으면, 말해도 이해를 못 한다. 못 봐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신다.
6. 가령 자신이 농사에 대해 잘 안다 하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신이 창조한 존재물이니 농사에 대한 각종 이치를 잘 아신다. 고로 그것을 ‘대화의 문’으로 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대화의 시작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싹이 나듯, 그 사람이 그 일을 안 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하고 농사의 이치를 깨닫고 다른 것도 물으면, 성령님도 “맞다. 그와 같다. 하찮은 곳에는 10년을 있어도 안 된다.” 하시며 대답하신다. 또 “황금성 천국은 마치 곡식이 잘 익은 가을과 같고, 일반 천국은 늦여름에 자란 곡식 같지요?” 하고 물으면, 성령님은 “맞다. 정확하다.” 하며 이야기하신다. 또 “황금성 천국은 다 익은 과일과 같고, 다 익은 곡식을 타작해서 쌓아 둔 것과 같다면, 일반 천국은 아직 다 크지 않은 과일이나 곡식과 같지요?” 하고 물으면, 성령님은 “맞다. 그와 같다.” 하신다. 이같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아는 것>을 들어서 말하면, 자기가 잘 이해하는 것이니 그것이 ‘대화의 문’이 되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천국이 어떤 세계인지 물으면, 본인이 생땡같이 모르는 것이기에 대화가 안 된다.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가지고 대화하여라.
7. 자기 애인이 좋아서 사 준 것을 가지고 대화를 꺼내면, 본인도 알고 이해하니 서로 좋아서 대화가 더 잘된다.
8. 애인이 만든 작품이나 애인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 좋아서 대화가 더 잘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이나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 대화가 더 잘된다. <잘 아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잘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다.
9. <자기 몸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아니, <자기 몸>도 ‘대화의 창’을 여는 핵으로 쓰기 좋다.
10. <월명동>에서 낳고 자라서 월명동에 대해 잘 알고, 또 하나님이 ‘황금 덩이 지역’으로 귀히 보시니, 늘 어려운 문제를 두고 ‘월명동’을 들어 이야기한다. 또 평소에도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 “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신 것같이 그 사람도 그러한가요? 이치가 맞나요?” 하고 연관시켜 이야기하면 삼위도 말씀하시며 대화하신다.
11. 하나님은 생시에도, 꿈에도 ‘깨달을 것’을 보이시고, 그것을 깨달으면 대화하신다.
12.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깨달았으면, ‘자기가 깨달은 범위’에서 대화를 하신다.
13. <사랑>은 극적으로 생각이 쏠리는 센터이니, ‘사랑’으로 대화하여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먼저 사랑’하면 좋아하신다.
14. <사랑>은 ‘대상’이 먼저 해야 ‘주체’도 좋아서 해 줄 것을 해 준다.
15. <사랑>은 항상 ‘대상’이 먼저다. <주체>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지쳐서 마치 가뭄에 말라붙은 나무가 물을 기다리듯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다.

16.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을 하시었다. 부모가 자기를 낳기 전부터 서로 사랑해서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도 인생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해서 낳으셨다. 고로 혹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하지요?” 하고 물을 것도 없다. 이는 확인하려고 하는 말인데, ‘필요 없는 확인’이다. 말로 확인할 것도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행해야 된다. 행하면, 행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네 사랑을 기다리다가 질식할 뻔했다.” 하신다.

17. <사랑을 늦게 하는 자>는 청춘이 가고 노년이 되어 한다. <일찍 하는 자>는 10대 때 하기도 한다. 어떤 자는 ‘사랑의 킹’이 되어 살고, 어떤 자는 ‘사랑의 재벌’이 되어 산다. 사랑이 풍부하게 산다. 어떤 자는 나이를 먹었어도 집도 없이 전세살이 하듯 ‘사랑의 전세살이’를 하고 산다.

18. <물>도 깊이 파야 솟듯이, <사랑>도 본인이 깊고 높게 해야 사랑이 샘솟는다.

19. <육신이 받는 사랑만 습관 되어 사는 자>는 하나님께도 그리한다.

20.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 재벌’이 된 자는 다 본인이 그만큼 해서 받은 것이다.

21.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서 놓고 먹고 한다. 동일하다. 누구에게는 하늘이 더 낮아서 손이 닿겠느냐. 본인이 하늘로 더 올라가려고 행한 자가 하늘이 손에 닿고, 하늘과 가까이 사는 것이다.

22. <자기의 사랑>에 따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움직이신다.

23. <사랑을 조금 하는 자>는 그 사랑이 사막에 물이 있는 정도다.<사랑을 많이 하는 자>는 생활할 때 물이 있는 정도다.<더 많이 사랑하는 자>는 수영장, 흐르는 강 같은 정도다. 자기 몸과 생각이 있으니 이 정도의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늘으면, 사랑도 늘어서 못 한다. <삶의 기회의 때>가 가면, 영원히 ‘육의 때’는 안 온다. 본정신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기회의 때’에 행하여라.

24. 말로는 ‘사랑, 사랑’ 한다. 말은 쉽다. <입 사랑>은 ‘꽃 사랑’이다. 실체 ‘열매 사랑’이 아니다. <열매 사랑>이라야 커서 열매를 먹듯 ‘희망 있는 사랑’이다. <지옥에 간 자들의 기록>을 보면, 말로 ‘입 사랑’은 많이 했다. 실체 ‘열매 사랑’을 안 하거나, 혹은 하다가 말아서 그 행위대로 지옥으로 갔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육적으로 ‘세상 사랑’을 즐겨 하니 그리된 것이다. 지옥에 가서 보니, 세상에서 행한 것이나 사랑한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옥의 고통’만 느끼며 살고 있었다. 대화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막연한 처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 삶이 계속되면, 영원히 그리살아가는 것이다.

25. 세상에서 100% 구원받지 못하면, 그 육신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가나 결국 ‘사망’으로 간다.

26. 모르고 살다가 ‘모르는 고통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

27.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심적 고통이나 육신의 고통을 받아도 지옥 같다. 그 잠깐의 고통도 못 견디고 몸부림치는데, 이것을 ‘영’이 영원히 받을 것을 생각해 보아라. 잠이 오겠느냐. 자기 육신이 미쳐 즐겨 노는 육적인 삶이 살아지겠느냐.

28. 어떤 자가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기에 지옥 견학을 시켜 주며 “하나님을 안 믿고 살거나, 믿다가도 이성에 빠져서 안 믿게 되면 저 같은 지옥 불바다에 빨려 들어간다. 너를 구해 주고 사는 방법을 알려 주니 펄박이나 어려움, 세상 유혹에도 절대 마음 꺾이지 말고 행하여라.” 하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잘 따라오다가 술과 담배, 이성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갔다. 그 영을 보니 지옥 쪽 사망에서 살고 있었다. 다 포기하고 살고 있었다. 그 사랑도 즐거움도 모두 한계를 맞고 잠깐으로 끝난다. 그 육은 폐인이 되어 ‘썩은 과일’같이 되었으니, 하나님도 주도 잇고 사람들에게 “거울로 삼고 깨달아라.” 하는 데만 쓴다. 그는 지옥이 제일 무섭다고 하며, 자기가 지옥 견학 갔던 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고 한 자였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 가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자기

가 좋아서 하와같이 타락하고 ‘이성 세계’로 가니, 자기가 좋아서 지옥에 간 격이 되었다. 고로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것과 같이 사망이 그를 덮치게 되었다. 룯의 아내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거울이 되었다. 이를 거울로 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산 자들은 목회도 하고, 많은 생명들을 이끌며 간다.

29. 말씀에 깊이 박혀서 스스로 행하는 신앙을 해야 된다. 각종 예술이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분위기로 신앙을 하다가는 멍청하니 자기 올라미에 걸려 꺼꾸러지게 된다.

30. 절대 지옥에 안 간다고 하며 세상 것도 모두 포기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동료들에게 얻어먹으면서 신앙만 하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기에 그리하라고 하며 축복해 줘어도 이성으로 타락하여 세상으로 나가 산다. 그들은 마치 고기를 씹듯이 자기 혀를 씹으면서 사는 고통을 받는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고통을 자기 스스로 받는다. 자기 근성, 자기 본성을 못 고치면 결국 발각되어 그리된다.

31. <월명동의 표상 술>에 가서 자기도 이와 같이 되겠다고 하며 사진도 찍어 보냈기에 그리하라고 허락해 줘어도, 자기 근성을 못 고치니 결국 나가서 사망의 길을 간다. 그 대신 다른 자들이 와서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며 행한다. 연못에 사다 넣은 고기가 죽으니, 주인은 다른 고기를 사다 넣는다. 고기야 세상에 많고 많다.

32.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한 인생이 살아 있을 때는 그리 크다. 그러나 사망으로 죽으면 결국 무덤으로 끝나니, 생각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손해다.” 하셨다.

33. <자기의 행함>으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간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행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하신다.

34. 과일나무도 과일이 열리고 크다가 떨어지면, 나머지 열매들이 커서 그 자리를 채운다.

35. <존재할 때>만 존재한다. 하다 말면, 과거에 잘했던 자라도 신앙이 죽는다.

36. <개>를 사서 키우다가 죽으니, 주인은 ‘소’를 사서 키운다. <소>를 통해 행하니 더 영광이 되었다.

37. <병든 닭>은 죽는다.

38. 매일 ‘영원한 천국 길’을 기뻐하며 가야 된다.

39. <지옥 길>을 가면서도 욕이 향락에 빠져서 매일 기뻐하며 가는데, <천국 길>을 가면서 매일 욕도 영도 기뻐하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

40. 저마다 자기 행위로 인해 <의인>은 ‘영광의 세계’로 가고, <불의한 자>는 ‘악한 세계’로 간다. <심판의 날>이 와서 ‘악한 세계’로 가면, 그제야 괴로워서 탄식하나 해결이 안 된다. 그곳에는 멸망으로 가기 원하는 자들만 있다. 마치 개미들이 죽은 벌레를 끌고 가듯, 포식자 사탄이 그 영들을 끌고 간다. 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나, 그곳에는 자기를 구해줄 자가 개미 한 마리도 없다. 자기가 좋아서 행하다가 하나님과 주를 버린 죄, 배신한 죄로 인해 그리된 것이다.

41. 자기가 좋아서 불의를 행할 때도 그것을 ‘큰 죄’로 안 보고 행하니,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을 모른다. 그러니 지옥에 가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엄청난 지옥에 왔냐고 하며 탄식하고 억울하다고 한다.

42. <육신이 지은 죄>를 ‘영’이 받으니 어이가 없기도 하지만 육신이 죄를 지을 때 혼과 영도 따라서 함께 지었으니, 육신이 죽으면 그 짓값을 혼과 영이 받는 것이 당연하다.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짓값을 안 받겠느냐. 그 육체 덩이는 이미 짓값을 받고 죽었고, 그 고통이 혼과 영과 일체 되어 욕이 행한 행위대로 고통을 받는다. 그 영은 자기 욕신이 행한 것을 깨닫고 “당연히 짓값을 받아야지.” 하고 받는다.

43. 이성으로 나간 자의 영을 만나러 영계에 가 보니, 그 주관권의 영계를 다니면서 사망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 영은 늙은 영으로 변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거지같이 살고 있었다. 거기서 그 ‘영의 뇌’가 그대로 뿌리박고 살고 있다. 그

러니 구원은 불가능하다.

44. 인간은 싫고 좋은 것이 ‘순간의 시간’을 두고 너무도 변화무쌍하게 바뀐다. 같은 것을 두고도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싫어한다.

<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그들이 사는 시골 초가집을 ‘의인들’이 포클레인으로 부수러 가면, 모든 자들에게 “이 집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하며 목숨을 걸고 외친다. 이 말을 듣는 자들 중의 일부는 ‘상식을 벗어난 거짓된 말’에 유혹되어 그 말을 믿으면서 쳐다본다. 그러다가 <의인들>이 포클레인으로 확 찍어서 1분 만에 부숴 버리면, 그때 사탄은 자기 말이 거짓이었다고 하며 더 이상 한 마디 말도 안 하고 사라진다.

2. 악인도, 악평자도 사탄에게 배워서 그같이 행한다.

3. <사탄>은 자기편이 이미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도 절대 죽지 않은 자라고 하며 산 자라고 외친다. 이를 보고 있는 자에게도 그리 외치고, 안 본 자에게도 절대 안 죽었다고 하며 거짓을 외친다.

4. 사탄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사탄들 중에 ‘참된 말’을 한 사탄은 단 하나도 없다. 이를 의인들이 알고 “거짓이다.” 하면, 사탄은 거짓말한 것은 한 마디도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5. 지구상의 모든 재판장과 판사, 검사가 합동해서 ‘사탄이 거짓된 말을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대도, 사탄은 “우리는 단 한 번도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뒤집어엮고 못 박아 놓고서 우리보고 죄인들을 잡았다고 하며 큰소리 치는 것이다.” 한다.

6. <메시아>는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다. 메시아가 “사탄들이 패했다.” 하면, 사탄은 왜 우리 비밀을 꺼내서 모든 자들에게 말하느냐고 한다.

7. <메시아>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영역이 아니니 오지 마라.” 하면, <사탄>은 “우리 영역인 지옥에 오지 마라.” 하고 간다.

8. 하나님은 사탄이 대화의 대상이 되어 말하면 아까우니 말하지 않으시고 때마다 해당되는 처치를 그때그때 하신다.

9. 한번은 ‘사탄과 악인이 한편’이 되고, ‘의인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한편’이 되어 싸우는데, 사탄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이 싸움을 하나 마나 우리가 이기는데 시간 아깝게 할 수 없이 싸운다.” 하고 있었다. 사탄은 모두 그 생각이 거짓되어서, ‘각종 거짓과 더러운 행위’를 기쁨으로 삼고 스릴을 느끼며 산다. 그 경기는 이미 ‘선 편’이 이기고 ‘사탄과 악인들’이 패했는데도 그들은 그리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가서 보니,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며 즐기고 있었다. <사탄>은 모두 이리하다.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참’인데도 단 하나도 ‘참’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악과 거짓’을 ‘사탄국의 최고 선’으로 본다.

10. <사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성 사랑’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하라고 유혹한다.

11.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탄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하는 주권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이름’으로 ‘말’로도 명하여 멸하고, ‘행위’로도 명하여 멸하여라.

12. <사탄>에게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뺏기면, 본인이 싫어해도 따라가게 된다.

13. 섭리사에도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사탄에게 뺏긴 자다. 고로 옆에 있는 자가 파악하여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며 용기를 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어 그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서 다시 빼앗아 와라. 본인이 다시 하겠다고 마음먹고 행하면, 사탄에게서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빼앗아 온 것이

다.

14. 사탄은 안 보이니 ‘기도’하며 느끼고 알고, ‘꿈’으로 흔히 보고 알아라.

15. 항상 먼저 사탄을 물리쳐라. 그러지 않으면 ‘수고해 놓은 것’을 무너트린다.

16. 매일 이를 닦듯, 매일 몸을 씻듯, 매일 배설물을 처리하듯 매일 사탄을 기도로 물리치고 생활 가운데서도 늘 물리쳐라.

17. 자기 앞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무슨 면목으로 천국에 가느냐.

18.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다. <불신의 영, 사탄>은 하나님께 ‘눈엣가시’이니 사탄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게 해라. 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아서 답답하게 한 것을 시원하게 해 드리고,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과 목적을 확실히 알고 이뤄서 천국에 가야 된다. 그래야 떳떳하다. 그냥 그럭저럭 하고 천국에 가면, 천국 문도 열리지 않는다.

19. <의를 행함>으로 ‘악’을 멀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 드리기도. 또 사탄을 물리쳐서 사탄의 세계로 안 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도.

20. 사탄과 섞여 살면서 그 행위대로 악을 행하다 보면, 체질이 되어 “이 세계도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하며 악한 세계에 가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한다.

21. 세상에서도 ‘불의한 자들’과 그 세계에서 어울리다 보면, “이 세계도 그리 나쁘지 않네.” 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도 한다. 그러나 ‘악한 것, 불의한 것, 세상의 것들’을 한 가지만 행하여도 싫어하고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두렵게 보는 자들은 사탄과 악인들이 ‘불의한 세계’에 가자고 해도 질겁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가지를 않는다. 이는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동일한 현상이다.

22. 가령 술을 먹는 자는 술친구가 같이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끌려간다. 자기가 원하니, 제 발로 간다. 그러나 아예 관심도 없고 안 먹는 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한마디 쏘아붙인다. 술이나 담배, 이성 등 각종 불의와 악한 행위는 아예 행하지 말아야 그 면으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것이다.

23.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사전에 악한 자들과 함께 행했든지, 혹은 스스로 불법을 행하였기에 ‘불의한 세계’로 나간 것이다. <나가는 이유>는 죄를 죄로 안 여기고 하나의 ‘자유로운 생활’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끼리는 “이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생활이다.” 하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각종 불의를 행하며 산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법’도 버리고, ‘자기중심, 세상의 육적인 것’을 법으로 여기며 행하고 산다. 고로 다시 ‘선’을 알고 돌이키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천법>에 의해 ‘행위의 형벌 기간’에 들어갔으니, 벗어나려고 원해도 안 된다.

24. 절대 자기가 ‘하나님의 법’에 기준을 세워서 행해야 된다.

25. 매일 ‘죄 회개’다. 매일 ‘의의 행위, 의의 생활’이다.

26. 자기가 기뻐 좋아서 자기 집을 짓듯이, 매일 전능자 말씀으로 ‘자기를 의인으로 만들며 사는 삶’을 기뻐 좋아서 살아야 된다.

27. <하나님의 뜻과 법에 벗어난 자들>을 단호하게 ‘불의를 행한 자’로 여기고 멀리하여라. <불의를 행하는 것>을 경멸하고, 늘 ‘의’를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

28. 흐리멍덩하면, 반쯤 죽은 자다. <악의 세계>와 <선의 세계>를 두고 분명하게 금을 긋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어 살아야 된다.

29. 사탄은 분명하지 않으면 쉽게 유혹해서 데려간다.

30. 결혼했어도 “사랑이 뭐지? 별로다.” 하며 남편을 흐리멍덩하게 대하고 살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선을 넘어서 행한다. 그러다 유혹하는 자가 이를 알고 꺾어 끌고 간다. <신앙>도 그러하다.

31. <시대 말씀>을 확실하게 배웠으니, 확실하게 행하여라.

32. 무리 속에서 뭉쳐서 확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포식자’에게 사냥 당한다. <신앙을 하는 자>도 신앙 안에서 확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사탄과 악인들’에게 그와 같이 당한다.

33. <예정된 자>라도 잘하다가 자기 마음과 생각이 점점 나태해져서 신앙이 시들면, 그때는 ‘자기의 검’이 없으니 병든 자같이 되어 쓰러지게 된다.

34. 본인이 스스로 택하여 ‘사망길’로 간다.

35. 실상 ‘지옥 길’도 본인이 스스로 택해서 간다.

36. 하나님은 지옥에 안 계신다. 천국에 계신다. 인생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 지옥으로 가는 것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 그런데도 안 믿으니, 본인 스스로 지옥에 가는 격이 된다.

3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아도 정말 깊이 그 심정을 알고 살지 않으면, 믿는 보람을 못 누린다.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만든 주인>은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지만, <보는 자>가 ‘자기 차원과 마음’에 따라 “좋다.” 하기도 하고, “못하다.” 하기도 한다.

2. <천지 만물>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보는 자>가 ‘자기의 생각과 지식’에 따라 어떤 것은 좋다고 하고 어떤 것은 못하다고 한다.

3. <존재물의 개성>대로 창조해야 하기에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다.

4. <천지 만물의 축소체>인 ‘사람’을 보아라. 하나님은 각 지체 모두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중에 어떤 지체는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아름답지 않게 보여도 각 지체가 기능을 하려면 귀는 귀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만들어져야 하기에 각 지체를 그와 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개성’대로 창조하셨다.

5. <사람의 지체>를 보아도 그 모양이 ‘양과 음’으로 되어 있다. 나올 곳은 나와야 아름답고, 들어갈 곳은 들어가야 아름답다.

6. <산과 계곡>을 보아도 ‘나오는 곳’과 ‘들어가는 곳’ 두 가지가 있어야 조화롭고 아름답다.

7.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은 모두 아름답고 멋있게 창조하셨다.

8. 찢을 하나를 만들 때도 ‘전체’를 아름답고 사용하기 좋게 만든다. 어떤 부분은 예쁘게 만들고 어떤 부분은 대충 만들지 않고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주와 지구, 천지 만물’을 두고 ‘전체’를 다 개성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9. 가령 돌을 보면 어떤 돌은 형상이 있고, 어떤 돌은 형상이 없이 매끈하고, 어떤 돌은 구멍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형상이 없이 매끈한 돌을 보면 “별로다. 혼하다.” 한다. 하나님은 ‘개성’으로 창조하시니, 그 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 하나님은 각종 개성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또한 존재물대로 기능을 해야 하니 그같이 뾰족하거나 넓게, 혹은 들어가거나 나오게 창조하신 것이다. 한 존재물을 보고 “여기는 아름다운데, 여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그 존재물의 기능을 하도록 모양과 형상을 만들고 전체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나 여호와가 일부만 아름답게 창조했겠느냐.”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천지 만물이 모두 존재의 기능을 하도록 그같이 모양과 형상을 만들고, 다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하셨다.

10. <얼굴>도 보면 나온 곳도 아름답고, 들어간 곳도 아름답고, 넓직한 곳도 아름답다. 높이 만들면 그다음에 낮게 만들고, 낮게 만들면 그다음에 높이 만들어야 되기에 그같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두 다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깨달아라.

11.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연을 창조하셨다.

12. 화산으로 인해 만들어진 천연 굴을 보면 넓고 좁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강약이 있다. ‘하나님 구상의 근본’이 그러하다.

13. <식물>도 보면, 가늘고 굵고 하는 강약이 있다. 크면, 그다음에는 작아진다. 이는 ‘존재물의 근본 원칙’이다.

14. <사람>도 살면서 강하게 힘 있게 행하여 올라가면, 그다음에 힘이 없어지니 내려간다. 그러다가 힘이 모아지면 또 힘 있게 뛴다.

15. 용암이 땅속에서 터져 나올 때도 일사천리로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뜨거운 정도와 나오는 속도에 따라 높게도 나오고 넓게도 나오면서 각종 형체가 이루어진다. 이는 용암이 바위를 녹이면서 나올 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16. 물을 땅에 한 바가지 쏟으면, 땅이 젖은 형태가 ‘가늘게’도 보이고 ‘넓게’도 보인다.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17. <두 가지 형체>가 기본이 되어서, 나머지도 그에 따라 이루어진다. 어떤 것을 만들 때도 이같이 만들면 자연스럽다.

18. <사람의 형상>을 봐도 머리는 나오고, 목은 들어가고, 가슴은 나오고, 허리는 들어가고, 히프는 나오고, 다리는 들어갔다. <두 가지 형체>가 기본적인 ‘양과 음’이 되어서, 나머지도 그에 따라 섬세하게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루어졌다. 사람같이 만들면,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고 멋있고 웅장하다.

19. <월명동>도 높고 낮고, 들어가고 나온 자연 그대로 개발하여 만들었다. 또한 <돌>도 세우고 눕히고, 크고 작은 것을 다양하게 쌓아서 조화롭게 만들었다. 전체를 보고 그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쌓았다.

20. <월명동 지역>은 산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형상이 이루어져 있다. 의자 모양, 반달 모양, 사람 모양, 사람들이 최고의 길성지라고 하는 자미원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21. 들어가고 나오면서 형체가 이루어져야 이상적이다.

22. <사람의 형체>는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루어져 있다.

23. <작품>도 만들 때 들어가고 나오고, 높고 낮고, 가늘고 굵고, 좁고 넓게 만들면서 모양과 형체를 만들어야 더 귀하게 본다.

24. <자기를 만들 때>도 그러하다. ‘목적’을 두고 쓰기에 합당하게 자기를 만들어라.
25. 지금은 하나님이 ‘시대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의 욕도, 영도 함께 만드신다. <자기 욕과 영이 만들어진 자>는 ‘휴거의 영,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어 천국 황금성에서 산다.
26. 만들어야 생긴다.
27. 가만히 있으면, 100년이 가도 ‘잠언 한 개’를 못 만든다.
28. 잠언은 만들고 나서 고치기도 하고, 아예 받은 것을 표현을 잘하여 쓰기도 한다.
29. <월명동>도 안 만들면, 모두 돈을 내고 했어도 1000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
30. 생각나면,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만들기다.
31. 하나님이 ‘자연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신 것’과 ‘사람을 시켜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모두 귀히 보고 써라. 그러면서 자기 욕도 영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 황금성에 가는 데 쓰고, 삼위와 주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인생>들은 늙어 가고, <월명동>은 날마다 나무들도 커 가고 개발하니 젊어져 간다. 사람같이 늙지도 않고, 폐함도 없다.
2. 돌과 나무와 산으로 만들었으니, 천 년 동안 간다.
3. <욕>이 죽고 ‘영’이 황금성 천국에 가 있어도 사명을 하러 지상에 오기도 한다. 그러면 그때 월명동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황금성 천국에도 월명동을 그대로 확대하여 수만 배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고로 황금성 천국에서도 월명동을 보고 누리며 쓰게 하셨다. <월명동>은 ‘시대 신부들을 만든 곳’이고, ‘창조 목적을 이룬 자리’이기에 천국에도 그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4. <사망으로 가는 자>는 ‘세상의 것’을 못 가지고 가지만, <구원받은 자, 뜻이 있는 자의 것>은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 ‘기념’으로 천국에서도 가지고 있게 하신다. 고로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던 물건이나 집이나 작품을 ‘기념’으로 천국에서도 가지고 있도록 그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옮겨 주신다.
5. 선영계나 지상영계, 지옥으로 간 자들은 일절 안 해 주신다.
6. 천국은 세상 같지 않다. 천국에는 돌들이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 같다. 궁금하면 기도하고 가 보아라. 다 허락했으나, 실력이 없어 못 갈 뿐이다.
7. 별세계를 허락했어도, 실력자만 간다.
8. <월명동>도 허락했어도, 실력자만 가 본다.
9. <땅의 보화>를 허락했어도, 실력자만 찾는다.
10. 모두에게 보화가 허락됐지만, 실력자만 본다.

11. 꿈도, 생시도 모두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실력자만 얻고 본다.

12. <천국>도 모두 허락했지만, 실력자만 간다.

13. 실력이 부족하면, 연습해서 하면 된다.

14. 초등학생 때는 잠언을 쓸 줄 모르니, 하나의 좋은 생각으로만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 어떤 자는 “책에서 본 말이냐?” 하며 안 알아주기도 했고, 어떤 자는 “말이 권위 있다. 귀에 쏙 들어온다.” 하며 알아주기도 했다. 기본을 깨닫고 하나씩 쓰다가 결국 하나님과 성자의 일을 맡게 되니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성자는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모두 ‘잠언’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되었다.

15. <잠언>은 ‘생활에서 쓰는 각종 기구’와 같다. 생활에서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기구가 필요하듯, 잠언도 그때마다 필요한 잠언이 있다.

16. 어떤 잠언은 내용이 ‘볼펜’과 같아서 글을 쓸 때만 필요하다. 또 어떤 때는 볼펜이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다른 데 각종으로 쓰여지듯 잠언도 다양하게 각종으로 쓰여진다. <잠언>은 쓰일 곳에 쓰일 때 ‘문제의 답’이 된다.

17. <잠언의 내용>을 깨닫고, 그 ‘오묘하고 신비한 맛’을 알아라.

18. <잠언>은 ‘책’과 전혀 다르다. <책>은 ‘전체’에 ‘하나의 내용과 뜻’이 나타나도록 쓴다. 반면, <잠언>은 축소시켜서 ‘한마디’로 전체를 말하면서 “이와 같이 모두 이러하다.” 한다. 혹은 ‘비유’로 쓰기도 한다. <잠언>은 ‘이치와 지혜의 말’이요, ‘지식의 말’이다. 확실하고 명철하게 ‘한마디’로 답을 준다.

19. <잠언>을 쓸 때는 표현상 돌려서 쓰기도 한다. 가령 <금단의 열매>를 표현할 때 어느 때는 ‘길’로 표현하기도 하고, 은밀하게 표현하려고 ‘밥’이나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숨겨야 될 것은 ‘돌’이나 ‘나무’로 쓰기도 한다. <기본적인 것> 외에는 그것을 준 자와 쓴 자밖에 모른다. 잠언으로 나갔어도 모르는 것이 많으니, 문자로만 본다.

20. 소로 길이 크면, 소로 길 같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잠언을 돌려서 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을 놓고 대화하다가 이것이 너무 작다고 하니, 하나님은 “입이 크면 입 같지 않다. 작아야 된다. 내가 무엇을 구상하고 만든 것인지 모르니 작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게 만들어야 될 형상이다.” 하셨다. 그리고 다시 보라고 하셔서 그 자연 만물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지체의 한 형상이 선연히 보였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사람의 눈이 주먹만 하면 그것이 눈으로 보이겠느냐. 눈은 보는 기능을 하라고 만든 것이다. 월명동 형상도 그러하다. 너무 크니 백보좌 형상으로 안 보여서 ‘야심작’을 만들고 한눈에 보이게 했다. 그리고 인대산에 가서 전체 지역 형상을 보게도 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 주어 지금은 그리 인식하고 보니, 316 휴거기념관 옥상에만 가도 의자 형상이 잘 보이지 않느냐.”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월명동 반월 터도 200년 동안 찾았어도 못 찾았다. 월명동 전체가 반월 형상이니, 커서 못 찾은 것이다. 이는 마치 개미가 코끼리 다리를 못 찾는 격이다. 고로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 전체 월명동 반월 터를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하셨다. 축소판은 ‘달’이다. 달도 직접 가서 보면 크니, ‘원’으로 안 보인다. 이같이 ‘큰 사람’도 바짝 가서 보면 안 보인다. <주>도 가까이 있는 자들은 다 못 보니, 마치 지구를 평지로 보듯 달리 보기도 한다. 고로 식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지구를 평지로 보듯 본다. 깨닫고 아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21. 가령 차를 줄 때 운전대나 엔진, 의자 중에 하나를 빼고 주지 않는다. 줄 때 다 주듯이, 하나님도 주실 때는 일부만 주지 않으시고 줄 것을 다 주신다.

22. <사랑>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드릴 때 다 드려야 된다. 일부만 주는 자는 사랑을 자기중심으로 쓰는 자다.

23. <술을 선물하는 자>는 술과 술뚜껑을 다 준다. 이같이 하나님도 주실 때는 다 주시니, 이를 알고 조건도 충만하게 세워라.

24. 한 여자가 사랑을 주면 다 주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한 번 무엇을 주면 다 주신다. 일부만 주지 않으신

다.

25. <한 잠언>을 줄 때도 일부만 주지 않으시고, 다 주신다.

26. 가령 손으로 악수를 할 때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중에서 손바닥만 주면 악수를 할 수 없다. 손을 다 주고 악수하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다 주신다.

27. <사람>은 말로는 “다 준다. 다 한다.” 하면서 안 하거나 못 하지만, <성령>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실체’가 되고 동시에 행하신다.

28. 전깃줄을 서로 연결하면, ‘선’도 일체 되고 동시에 ‘전기’도 일체 되어 흐른다.

29.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말씀하시면, 그 말과 함께 동시에 행하신다.

30. 인간은 말을 하고도 행하지 못하거나 안 한다.

31.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말’과 ‘행하심’이 같다. “해 주겠다.” 말씀하시면, 때에 맞춰서 합당하게 해 주신다.

32. (성령) 주체가 되면, 다스린다. 고로 힘들어도 해 주는 것이다.

33. (성령) 해 주면, 그 일의 주체가 되어 다스리게 된다. (성령이 주신 귀한 잠언이다.)

34. <사랑>도 ‘해 주는 자’가 주체가 되어 다스리게 된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을 사랑하시니, ‘주체’가 되어 다스리신다.

36. <주는 자>는 다스린다.

37. 서로 주면, 동등권이다.

38.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시어 다스리신다.

39. <준 자>가 다스린다.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계시>를 섬세하게 보여 주었기 때문에 섬세하게 풀어야 제대로 풀린다.

2. <계시>는 ‘연결’이다. <대상>과 ‘연결’시켜 깨닫게 한다.

3. 연결돼야 ‘답’이다.

4. 연결돼야 풀린다.

5. <문제>는 ‘답’과 연결된다.

6. 맞아야 연결된다.

7. <대상>은 ‘연결’된다.

8. <꿈>은 ‘생시’와 연결된다. <연결된 것>이 ‘꿈의 실상’이다.
9. 계시를 전할 때가 됐는데 그때 받는 자의 여건이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자를 통해 전하게 하시어 ‘정한 때’를 맞추신다.
10. <정한 날짜>를 맞춰서 합당하게 해야 되기에 계시를 받는 장본인의 여건이 안 되면, 그와 ‘연결된 자’에게 주시고 후에 전하게 하시어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신다.
11. <하나님의 때>가 되어 교회 건물을 찾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기도하고 간구한 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못하면 다른 자를 통해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한 자’에게 응답하신 날과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신다. 고로 자기가 다른 자에게 전해들은 날로 치면 날짜가 안 맞는다. 그 전에 다른 자에게 사실을 전해 준 날부터 쳐야 된다.
12. <계시>는 섬세하게 주니, 섬세하게 풀어야 된다.
13.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는 ‘실체 대상’과 연결되듯이, <계시>도 ‘실체 대상’과 연결된다. 그것이 ‘계시의 답’이다.
14. 삼위는 ‘실체 대상’과 연결하시어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며 깨닫게 하신다.
15. <연결된 것>이 ‘실체에 해당되는 답’이다.
16. <꿈>을 꾸면, ‘꿈과 연결된 것’이 ‘꿈을 푸는 답’이다.
17. 가령 꿈에 돼지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람이나 나무나 돌과 연결되면, 그것이 ‘꿈에 계시한 것에 해당되는 답’이다.
18. <비유>도 ‘비유한 것’과 ‘실체’가 서로 매치되고 뜻이 통하면, 연결하여 비유로 말씀한다.
19. <성경을 풀 때>도 하나님은 번뜩 생각나게 하시며 ‘비유’와 ‘실체’를 연결시켜 답을 주신다.
20. <문제>와 ‘답’이 연결되듯 <꿈>과 ‘실체’가 연결되어 깨닫게 하신다.
21. <연결되는 것>이 ‘계시의 답’이다.
22. <연결된 자>는 ‘하나 된 자’다.
23. 연결되면, 통한다.
24. <계시>하면, ‘목적한 것’과 연결된다. 그것이 ‘계시에 해당되는 답’이다.
25. <꿈이나 생시에 계시를 받고 안 풀린 것>은 ‘이뤄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26. <계시가 풀릴 때>는 그것이 실체와 즉시 연결되면서 깨닫기도 한다.
27. <꿈이나 생시에서 보인 것과 연결되는 대상>이 ‘꿈이나 생시에서 보인 것의 답’이다.
28. 가령 꿈에 ‘큰 바위’를 보았는데 그 바위가 ‘사람’과 연결되면, “그 사람이 그 바위와 같다.” 함을 보인 것이다.
29. <성경의 비유>도 ‘연결되는 것’이 답이다.

30. 성경에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 하신 말씀을 ‘하늘 구름’으로 연결하여 풀면 절대 안 맞다. <구름>으로 비유한 것을 ‘구름’으로 연결시켜서 푸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여자의 사랑의 대상’을 ‘여자’로 짝지어 주는 격이다. 동질의 대상과 짝을 짓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은 절대 안 쓰신다. 하나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그에 해당되는 ‘다른 실체’를 두고 말씀하신다.

31. 하나님은 숨기기 위해 인봉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비유의 대상>은 ‘사람’이다. 가령 하나님은 한 사람을 두고 소를 보이시며, “그 사람이 소와 같다.” 하며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다. 소를 두고 소를 보이시며 이치에 안 맞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가령 병아리를 보이시며 “병아리에 대해 깨달아라.” 하는 계시는 안 하신다. 그러면 비밀로 인봉할 수도 없고, 동질의 대상이니 그 특성을 더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32. 하나님은 <말하고자 하는 자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시려고 거기에 해당되는 ‘비유’를 쓰신다. 고로 <성경의 비유>도 문자 그대로 풀면 안 풀린다. 하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생각하니 안 풀린다. 가령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두고 “그 자는 돌과 같다.” 하고 비유하신다. ‘실체 돌’이 아니다. 또한 <구름>을 들어 비유하면, ‘실체 구름’이 답이 아니다. <구름으로 비유한 대상>은 ‘사람’이다.

33. <성경에 기록된 만물 비유>는 모두 ‘사람’을 두고 비유한 것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두고 비유한 말씀이다. 만물들 자체를 위해 비유한 것은 하나도 없다.

34. 세상에서도 사람을 두고 그와 같은 만물을 들어 비유한다.

35. 성경에서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온다.”는 예언은 구름의 대상인 ‘사람’을 비유한 말씀이다. 곧 사람을 타고 온다는 말이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깨끗이 회개하여 정결하게 행한 자들이 마치 하늘 구름같이 ‘인구름’이 되어 따른다는 말이다. 이같이 못 풀면, 메시아가 물질세계나 접하고 오는 것으로 무지하게 풀게 된다. 그러니 사람을 타고 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적하신 일을 해도 전혀 모른다.

36. 성경에서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온다.”는 말씀도 메시아가 실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타고 온다 함이다. <백마>로 비유한 것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백마같이 깨끗하고, 백마처럼 뛰고 달리기 때문이다.

37. 가령 성경에서 “메시아가 사람을 타고 온다.” 하면, 그대로 말한 것이 되어 은밀하게 숨기고 말을 할 수가 없다.

38.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메시아로 안 믿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허다한 자들을 보아라. 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구름이다. 청중 구름이다.” 말씀하셨다. 이 시대도 메시아는 ‘개인 구름, 청중 구름’을 타고 온다. 그가 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타고 온다.

39. 지금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다. 연결된 것은 하나다.

40. <합당한 만물>을 보이시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어 연결되게 하신다. 고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며 깨닫게 하신다.

41. 가령 <귀뚜라미>를 ‘건물’로 보이시며, ‘교회를 사서 이사 가는 것’으로 연결되게 하신다. 이는 받는 자만 안다. 다른 자는 같이 봤어도 귀뚜라미만 보고 이야기한다.

42.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각종 존재물을 보이시고 연결시켜 깨닫게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신비하게 전달 하신다. 수백 리, 수천 리 떨어져 있어도 계시하고자 하는 실체를 그 현장에서 만물로 보이시며 연결시켜 깨닫게 하신다. 또는 사람을 통해 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신다.

43. 하나님은 ‘만물’을 사역자로 쓰신다.

44. <만물>은 수백만 가지다. 인간은 만물 속에서 사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변의 각종 만물로 보이시며 계시해 주신다. 그리고 이를 ‘실체’와 연결시켜서 행하게 하신다.

45.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든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그에 해당되는 각종 만물을 보이며 계시하신다. <꿈>에서는 ‘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시고, <생시>에서는 ‘생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신다. 어느 때는 움직이는 생명체로도 보이시고, 또는 물건으로도 보이시고, 또는 사람으로도 보이신다.

46. 사람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백만 가지 만물을 통해 보이 고자 하는 근본을 다양하게 열마든지 보이신다. 그 사연을 식물이나 동물로도 행하게 하시어 섬세하게 보이신다. 만물 은 수백만 가지 종류가 있으니, ‘사람의 실상’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다. 고로 하나님은 만물을 ‘사역자’로 삼아서 자세 히 보이신다. 어느 때는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면서 말로 하실 때도 있다.

47. <진정으로 원하는 자>가 매일 삼위와 함께 행할 수 있다.

48. 사람들은 서로 ‘대화’로 연결되고, 친하게도 되고, 가까이 가게도 된다. 또한 대화에 따라 상대의 생각이 뒤바뀌기 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그러하다. 대화를 통해 가까이 가기도 하고, 대화에 따라 생각이 뒤바뀌기도 한 다.

49. <사람과 대화>다. <하늘과 대화>다.

50. <세상의 왕>이라도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실체를 드러내신다.

51. 사람이 만물하고만 대화를 하면, 마치 같은 종이나 동질의 대상끼리 인연이 되어 사는 것과 같다. 인간도 물질세계 에 속하고, 만물도 육에 속한 하나의 물질이니, 마치 여자끼리 혹은 남자끼리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다. 고로 동성애가 비원리이듯, 이치에 안 맞다.

52. 사람이 <만물>을 통해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면, 마치 남녀가 짝이 되어 사랑하듯 ‘주체와 대 상이 만나서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다. 고로 영적인 자가 된다.

53. 항상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결되지 않으면, 죽은 자다. 자기가 불의를 벗어나 온전해야 삼위와 연결 된다.

54.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다. 고로 사망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신 다.” 하며 자기 주관, 자기 의지로 스스로 흥분시키면서 살아간다. 자기가 그리 생각한다고 근본적인 기쁨이 오겠느냐. 불법을 행하며 기뻐하는 자와 같아서 가다가 시들고, 사망에 처해 살게 된다.

55. <지옥에 간 자들>은 자기 주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굳어져서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해서 생각한다. 고로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이루니 기쁘다.”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지옥까지 왔다고 주장한다. 우상 종교의 지도자가 지옥에 가 있으니, 따르는 자들은 그가 지옥에 구원시키려 간 것이라고 주장한 다. 모두 하나님을 떠난 비논리다. 자기 좋은 대로 합리화시켜 주장하며 유혹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이 정도로 자기중심 적이다. 자기 스스로 좋은 대로 만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즐기며 산다.

56. <악평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위함이다.” 주장하며 사나, 이미 그 운명이 기울었다. <정신과 생 각이 그릇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는 시험과 환난이라고 한다.

57. 어떤 자는 불의를 행하여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형벌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 행위를 전혀 불의 로 보지 않고 인생이 겪는 하나의 고통이나 시험으로 생각한다. 자기가 형벌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더 괴로우니 그 리 생각하는 것이다. 그 누가 말하여 전해 주지 않아도, ‘양심’이 증거하며 소리치게 한다.

58. 의인들을 괴롭히니,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간구’는 피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권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외면해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끝내 가면, 사람도 만물도 성난 물결이 되어 두렵게 한다.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탄들은 사람들의 영을 지옥에 끌어다 가두어 놓고는 그 욕에게 변장하고 나타나서 “네 영은 천국에 가 있다. 편히 쉬어라.” 하며 유혹한다.

2. 사고 나서 죽었는데 집에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하며 거짓을 말하듯,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하고 안심시키며 기도를 못 하게 한다.

3. 하나님이 성경에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신 말씀을 두고 흔히 ‘눈을 예리하게 보호하듯 그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것이 아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냐고 물으니 말씀하시길, “사람이 눈으로 지키듯, 독수리가 눈으로 지키듯, 나 여호와도 눈으로 지킨다.” 하셨다. 사람도 ‘눈’으로 지키듯이 하나님도 ‘눈동자’를 가지고 흰히 꿰뚫어 보신다. 귀로 지키거나, 몸으로 지키면 잘 못 지킨다. 눈으로 직접 보고 지키니, 100% 보시고 지키신다.

4. 하나님이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하심은 눈동자가 보고 지키듯이 너희를 보고 지킨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티가 날아오면 손보다 빠르게 순간 눈을 감아서 눈을 지키듯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의 눈동자로 보시고 순간 눈을 깜빡하듯 빠르게 행하시어 지키신다는 식으로 그릇되게 해석한다. 그것이 아니다.

5. <눈으로 지킬 때>는 2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지킨다. 이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쳐다보시니, 백 분의 일 초도 틈 없이 꿰뚫어 보시며 지키신다는 말이다. 사람도 눈으로 지키듯, 하나님도 눈으로 보시고 지키신다.

6.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키듯 지키신다.” 한 말을 깨달아라.

7. 사람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8.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그 욕을 쓰고 나타나서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을 지켜보지 않고, 탄생각을 하며 탄 데 눈을 팔고 살았다. 하늘 앞에 인간이 먼저 실수하고 무지하게 행하여, 결국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불신하고 배신하게 됐다. 무지와 무력으로 메시아를 불신하고 외면하며, 이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실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자기 주관의 길로 갔다. 그 후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았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살다가 죽고, 그 후손들까지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 형벌 기간이 끝나야 다시 눈동자로 지키듯 지키신다.

9. 손이나 발, 귀나 코, 입 등 각종 지체들을 보아라. 그리고 어떤 것을 두고 지켜보며 실습해 보아라. <눈동자>같이 지켜야 제대로 지킨다.

10. <군대에서 보초를 서며 적을 살필 때>도 ‘눈’으로 꿰뚫어 보며 자세히 살핀다. 이같이 하나님도 눈동자가 보고 지키듯 지키신다.

11. 어린아이에게 기어 다니는 개미를 지키라고 해 보아라. 발이나 손으로 지키느냐. 혹은 귀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를 듣고 지키느냐. 혹은 말로 시키면서 지키느냐. ‘눈’으로 지킨다. 눈으로 꿰뚫어 쳐다보며 지킨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눈으로 꿰뚫어 쳐다보시며 지키신다. 그런데 우리를 눈동자로 보고 마치 눈을 순간 감아서 눈동자를 지키듯 지키신다고 그릇되게 성경을 푸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위력’을 제대로 알겠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온다.” 하신 말씀도 이같이 그릇되게 풀고 믿고 산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다시 온다.” 말씀하셨어도, 2000년 후에 ‘다음 시대 때’ 오신다. 새 시대에서 낳고 성장한 자 중에 뽑아서 그를 통해 다시 오시어 ‘재림의 역사, 성약역사’를 하신다.

12. 요즘 세상에는 죽었다가 하루나 이틀, 혹은 3~4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시고

육이 살아나지 않으셨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영’이 사망에서 부활하시어 ‘영’으로 다니셨다.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바닷가에도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영으로 다니시다가 승천하셨다.

13. <절대신 성자>는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33년 동안 땅에서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없으니, 육신을 쓰고 못 하신다. 고로 “다시 온다.”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재림 때 성자는 다시 오셔서 땅에서 ‘예비된 자의 육’을 쓰고 ‘재림의 역사, 성약역사’를 펴신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행하신다. 사명자는 그 말씀을 받아 전한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해서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교회로 번져 나간다. 100년, 200년, 300년 동안 번져 가다가 1000년이 가면 수십만, 수백만 개의 교회가 된다. 골짜기에 강물이 그리 많이 흘러 내려가는데도, 산 너머에서는 모른다. 가서 봐야 안다. <아는 자>만 알고 역사를 펴 나가고, 천국에도 간다. <모르는 자>는 육도 모르는 세계에서 살고, 육이 죽으면 그 영도 모르는 주관권에 가서 산다.

14. 자기 위에 ‘수만 층의 세계’가 있는지 모른다. 자기 급에 해당되는 층만 오르내린다.

15. <올라가는 자>만 ‘위에 있는 영의 세계’를 안다.

16. 여덟 살짜리 어린아이가 ‘결혼해서 사는 차원’을 본다고 알겠느냐.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자기 위의 세계는 아예 보지를 못한다. 느끼지도 못한다.

17. 자기가 왕이 아닌데 ‘왕이 사는 차원’을 알겠느냐. <왕이 사는 차원>의 생각과 권세를 알고, 그 위치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18.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영원히 모른다. 쪼개서 일부만 알거나 부분적으로만 알 것이다. 그러나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19. 구원도 휴거도 ‘아는 대로’ 한다.

20. 개미에게 코끼리에 대해 아냐고 물으면, 100% 안다고 한다. ‘개미 입장’에서 아는 것이다. 코끼리가 되어 봐야 그 제야 다 알게 된다.

21. <일평생 주가 하는 일>을 100% 다 봐도, 눈으로 보는 것만 겨우 안다. 그 역시 ‘자기 차원’에서만 아는 것이다. 심정의 세계나 각종 것들은 그가 되어 같이 받아야 안다.

22.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안다.

23. <주>는 ‘겸손한 자’에게 나타난다. ‘교만한 자’에게는 아쉬울 것 하나 없이 나타나지 않는다.

24. 이 시대에도 ‘교만한 자’가 너무 많다. 주가 그냥 놓아두니, ‘생명력이 없는 깨진 계란’이 되었다. 그러고도 뛰고 날며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겸손은 ‘비 온 날의 젖은 종이’같이 땅바닥에 붙어 있다.

25. 하나님은 ‘교만한 자, 사울’을 내려치시고 ‘겸손한 자, 다윗’을 세워 적들을 물리치고 40년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26. <교만한 자>는 ‘자기’를 중심하고, <겸손한 자>는 ‘주’를 중심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하여 삼위와 주를 머리 삼고 산다.

27. <양>이 ‘절벽에 있는 염소’에게 조심하라고 하니, 염소는 “나를 양으로 보냐?” 하며 어깨에 힘을 주고 힘차게 걸어 갔다. 그러더니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양이 가서 보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바위에 떨어지면서 살도 깎이고 골도 빠져나가 빈 골이 되고, 뼈가 다 부셔져서 절구에 찢어 놓은 것 같았다. 염소는 “교만이 이 꼴로 만들었다. 교만한 자들은 다 이리되니, 전해라.” 하고 죽었다. 어찌 염소를 말함이었느냐. 시대 주 앞에 교만한 자들을 말한다. <교만의

고도>를 낮춰라. <교만의 고도>를 높이면, 머리가 부딪히고 깨져서 정신도 생각도 없어진다.

<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새>를 잡았다가 놓으면 새를 놓치듯, <일>도 하다가 놓으면 일을 놓친다.
2. <생각>에서 일을 놓으면, 그 일을 놓친다.
3. <손>에서 일을 놓으면, 그 일을 놓친다.
4. <손>이 '뇌'다.
5. <생각>이 가고, '손'이 가야 된다.
6. <손>이 안 가니, 되는 것이 없다.
7.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은 자>는 그보다 못한 것을 보거나 먹으면 만족이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다.
8. <각종 운동>도 먼저 '호기심'에서 행하게 된다. 그러면서 배우고 발전하게 된다.
9. <호기심>은 '궁금하여 관심을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다.
10. <사람이 보는 것>이 얼마나 '뇌'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라. 가령 괴물이 나오는 영화나 화면을 보면, 순간 놀라고 충격이 온다. 선악 간에 '보는 것'이 그리 큰 영향을 준다.
11. <듣는 것>도 '뇌'에 영향을 많이 준다.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화가 난다. 고로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보여 주어라.
12.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영향'을 금방 받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영향'을 금방 받는다.
13. <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영향'을 받아 금방 실제로 반응을 보이고 그로 인해 생각이 달라진다.
14. <판단하여 선악을 구분하는 자>는 나쁜 것을 보고 듣고 겪어도 '판단'으로 물리친다. <악과 불의>를 '판단'으로 물리친다.
15.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좋아서 기뻐하던 것도 늘 보면 처음 생각이 사라져서 '보통'으로 본다.
16. 더 높이 보고 듣고 싶고, 더 높이 행하고 싶으면 '차원'을 높여야 된다.
17. <높은 산을 타던 자>에게 '낮은 산'을 타라고 하면, 스릴이 없으니 재미도 못 느끼고, 느끼는 것이 약하니 안 탄다.
18.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차원 높은 것을 보고 듣는 자'는 낮은 것으로는 재미를 못 느끼니 만족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다.
19. <뛰던 자>는 걸으면 답답하니 걸지 않는다.
20. <스키를 타던 자>가 '썰매'를 타면, 재미도 없고 스릴이 없으니 마음도 안 가고 "재미없다." 한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높은 차원에 오르면, 낮은 세계에서는 못 산다. 고로 차원 높여 가르쳐 주고 행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낮은

데로 안 간다.

21. <바다>에서 ‘바닷고기’를 잡던 자가 <강>에서 ‘강고기’를 잡으면, 재미도 없고 만족하지 못하니 안 한다. 못 하게만 하지 말고,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라.

22. <하늘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땅’에서 걸으면 그만큼 느끼지 못하니 만족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관심도 멀어지게 된다. 고로 차원을 높여 주어라.

23. <더 보여 주고, 더 들려주는 자>에게 간다. 주가 가르쳐 준 복음을 다 내놓고 전해 주어라.

24. 과일 상점도, 옷 상점도 ‘더 많이 있는 곳’을 이용한다. 모두 푸짐하게 가르쳐 주어라.

25. 온갖 말씀이 다 있어도 주가 없는 곳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한다.

26. 가지고 있어도 못 쓰면, 없는 자나 똑같은 것이다. 증거하고 써라.

27.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큰소리만 치면서 자부심만 가지고 안 쓰면, 돈 없는 자가 빚을 얻어서 대신 사간다. 고로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을 못 따라간다.

28. <새 역사>라도 증거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舊)역사’만 못한 것이다.

29. <간혀 있지 않은 자>라도 행하지 않으면, ‘간혀 있는 자’만 못한 것이다.

30. 고급 세단 차나 비행기가 있어도 쓰지 않으면, ‘걸는 자’만 못하다.

31.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양과 형체가 이루어져 있어야 좋다고 평가하며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차원대로, 자기 좋은 대로 기준을 두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32.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은 ‘절대적인 것’이 못 된다.

33.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역사해 오신 것을 보고도, 자신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이것은 더 크게 됐으면... 저것은 더 작게 됐으면...’ 하고 생각한다.

34. <어린이들>은 모르니, ‘전문가’가 해 놓은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35.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중에서 제일 크게 만들기를 원하나, 크다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아니다. ‘구조와 밸런스’다. 전체와 어울려야 하고, ‘크기’도 맞아야 된다.

36. <입이 큰 것을 좋아하는 자>는 입이 아주 커야 만족하나, ‘전체 얼굴의 균형’에서 벗어나면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만일 입 하나만 있으면, 입이 커도 전체의 균형이나 구조와 상관없다. 그러나 눈, 코, 귀가 있으니 ‘전체의 균형’이 맞게 크기가 알맞아야 된다.<월명동>도 그러하다. ‘전체의 균형과 구조’가 맞아야 된다. 만일 월명동에 높은 빌딩을 지어 놓으면 안 맞다. 월명동에 맞게 크기도 구조도 모두 균형이 맞아야 된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37. 사람의 눈, 코, 입, 귀, 얼굴 모두 ‘균형’이 맞게 하나님이 조화롭게 창조하셨다.

38. <돌>을 하나만 세우면, 돌이 커도 상관없다. 그러나 다른 돌도 같이 세워야 하니 ‘균형’이 맞아야 된다.

39. 다섯 손가락같이 크고 작고 ‘조화로운 구상’이다.

40. 월명동을 둘러싼 여섯 봉우리의 산들 중에 하나가 높이 솟았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전체가 ‘균형’을 잃어서 아름답지 않다.
41. 사람의 지체 중에 하나만 크게 그리면, 오히려 ‘전체의 미’가 없어진다. 이는 ‘구상의 기본법’이다.
42. <사람을 관리할 때>도 여러 사람을 놓고 그중에 한 명만 더 관리하거나, 일부만 관리하면 전체의 ‘균형’에서 벗어난다. 다만, 한 명만 있을 때는 상관없는 것이다.
43. <조화의 배치와 창조>다.
44.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타인의 것도 인정하며 좋아한다.
45. <자기 생각, 자기 취향, 자기 식>으로만 길들어서 행하면, 문제가 많다. 또한 더 좋은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하게 된다. 자기 생각, 자기 취향으로 길들어진 것만 좋아하기 때문이다.
46.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취향>으로 만들어라.
47. 자기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자만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
48. 자신은 온전하지 못하니, 잘못 생각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잘못 행하기도 한다.
49. <아기>도 ‘부모의 생각과 취향, 체질’대로 태에서 살도 뼈도 만들어져 나오듯이, <구원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신의 생각과 취향, 체질’로 만들고 ‘뼈 같은 진리’와 ‘살 같은 은혜’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신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를 자신의 육으로 삼고 구원역사를 펴시며 ‘시대의 뜻’을 이루신다. 이 시대에는 휴거 역사를 펴시며 ‘휴거의 뜻’을 이루신다.
50. 사람들에게는 만족하지 못하니,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은 ‘만물상’이시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다. 고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51. <음식>도 실제로 먹어 보면 보는 것과 다르듯이, <사람>도 같이 살아 보면 보는 것과 ‘맛’이 다르다.
52. <인생>은 ‘눈으로 보고 알기’보다, ‘겪어 보고 알기’다.
53. <음식의 모양>이 그 음식의 ‘맛’은 아니다.
54. <증거자>는 ‘눈을 뜨게 만들어 주며, 잠을 깨워 주는 역할’을 하여라.
55. 주가 뒤에 오니, 눈을 뜨라고 증거자를 먼저 보낸 것이다.
56. <전도할 때>도 ‘앞의 사람’을 통해 먼저 생각의 눈을 뜨게 하고, 그다음에 ‘뒤의 사람’이 온다. 그를 맞으라고 앞의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하고, 잠을 깨게 한 것이다.
57. <토끼>로 ‘사냥의 눈’을 뜨게 해 주고 토끼는 사라진다. 그리고 나서 <사슴>이 눈에 보여 잡게 한다.
58. <보여 준 모든 것>은 ‘성령께 오라고 보인 것’이다.
59. <보이고 듣게 한 것>도 모두 ‘성자에게 오라고 보이고 듣게 한 것’이다.
60. <말한 것>도 모두 ‘주께 오라고 말한 것’이다.

61. <닭 잡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잔칫날에 돼지를 잡으라고 가르쳐 준 것'이다.
62. <만물로 이지가 보인 것>은 '창조자를 깨닫고 찾아오라고 보인 것'이다.
63. <중매자를 보낸 것>은 '사랑하고 살 자를 찾아오라고 보낸 것'이다. 미련한 자는 중매자와 산다.
64. <왕>이 같이 궁에서 살자고 '신하'를 보냈더니, 그 신하와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왕이 이를 알고 둘 다 옥에 가두어 그곳에서 일생을 살게 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도 그러하다.
65.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어 보이고 쓰게 한 것>은 '육'이 땅에서 육의 것을 쓰고 기뻐하듯 그와 같이 천국에 만들어 놓았으니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쓰고 누리라 함을 깨닫게 한 것이다.<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66. <작은 수석을 줍고 좋아하게 한 것>은 '전초를 한 것'이다. 수석을 찾듯이 하나님이 숨긴 보화를 찾으라고 준 것이다. 고로 그것보다 수십만 배 큰 것을 찾고 가져다가 자연성전을 건축하였다.
67. <축소판 계시>는 '큰 것을 만들고 찾으라.' 함이다.
68. <작은 것을 건축한 것>은 이 같은 방법으로 크게 하라고 먼저 보인 것이다.
69. 작아서 만족하지 못하면, 내게 와서 듣고 보아라.
70. <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은 실상 '전능하신 삼위일체를 깨닫고 알라고 보이는 것'이다.
71. <한 잠언>은 '백만 잠언'이 되기도 한다. 곧 이 잠언이다. <모든 천지 만물 수백만 가지로 보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구원자를 깨닫고 찾아오라고 보이는 것'이다.
72. <높은 것을 본 자>는 '낮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73. <지붕>보다 '문'의 위치는 낮지만, 실상 그 명예는 '문'이 높은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74. <장소의 위치>가 '산 정상'보다 낮은 데 있어도, 산 정상보다 명예는 더 높다. 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선에 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따르는 자들>보다 '악과 불의에 속한 이단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먼저 더 잘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무지한 자들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선한 자들보다 악과 불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곡식이나 열매'보다 '잡초나 가라지'가 더 많은 격이다. <곡식이나 과일나무>는 자라면서 그 영양분이 '곡식과 열매'로 가니, 나무나 잎으로는 적은 영양이 간다. 고로 잎이 덜 무성하다. 그러나 <잡초나 가라지>는 곡식이나 열매가 없으니 그 영양분이 '나무나 잎'으로 다 간다. 고로 보기에 더 싱싱하고 무성해 보인다. 그러나 '곡식과 열매'가 없으니 결국 주인이 불사르고 끝난다. <영의 미래, 영의 열매>가 없으니 그 영이 '잡영, 악의 영'이 되어 '흑암 영계, 지옥, 악한 영들의 세계'로 간다.
2. <지옥>은 '불바다'라고도 한다. <불바다>는 '씻물이 끓는 곳'이다. 그 불길이 500m, 800m까지 도시의 아파트 높이로 치솟으며 타오른다.
3.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과 이단들>이 '의인들'보다 더 뛰고 날고 무성해 보이는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극적이기 때문이다. 또 극적으로 놀고 먹고 마시고, 극적으로 이성 사랑을 하고, 극적으로 술이나 담배, 마약을 하며 극적으로

행한다. 그 불의한 행위로 인하여 ‘악의 영들’이 그 육신을 쓰고 행하니 더 극적으로 행한다. 이를 영의 세계에서 보면, 악의 영들이 귀신들과 함께 그들의 팔과 몸을 흔들면서 뛰고 날게 한다.

4. <의인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으로 자기 몸이 닳아서 ‘은은한 달’같이 인격을 풍기고, ‘빛나는 별’같이 행한다.

5. <천국의 영들>은 고요하게, 은은하게, 고귀하게, 청아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행한다. <신부의 형상>으로 자기를 닳아서 하나님과 성령을 닳아 일체가 될수록 그같이 행한다.

6. <지옥의 영들, 악한 세계의 영들, 귀신과 잡영들, 샤머니즘을 믿는 자들의 영>은 마치 ‘마약을 먹은 자’나 ‘술에 취한 자’와 같이 과격하게 행한다. 그들 중에 어떤 영은 기분이 좋거나 괴로울 때 자기 머리를 바위에 박으며 찢기도 한다. 또 좋아서 춤을 출 때도 서로 허리를 비틀고 팔을 비틀면서 스릴을 느낀다. 아주 악질적이고 저질적으로 논다. <샤머니즘 신앙을 하는 원시 족속들>을 보면, 과격하게 칼을 휘두르며 온몸에 빨간 물감이나 흙을 붓고 재를 뒤집어쓰며 불로 몸을 지지면서 논다. 하나의 풍속이다. 이들을 영의 세계에서 보면, 이같이 살벌하게 노는 악한 풍속대로 악한 영계에 처해 행하며 산다.

7.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그리하는 자가 없다. 우아하고, 고귀하고, 예술적이며, 춤도 최첨단으로 추고, 최첨단으로 행한다.

8.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악한 쪽, 불의한 쪽’에 속해 사는 자들의 예술을 보면, 과격하다. <노래 예술>도 보면, 따발총을 쏘듯 중얼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과격한 노래뿐 아니라 각종 과격한 행위들을 한다. 술도 사정없이 마시고, 담배도 그 독한 것들을 사정없이 마구 피워 댄다. 독한 담배에 중독되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술도 더 자극을 느끼도록 독한 술을 찾는다.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되어 극적으로 마셔도 무감각해져서 별로 못 느끼고 몸만 망가진다. 이와 같이 <악과 불의에 속한 자들>은 야수같이 폭력적이고 혈기를 부리며 극적으로 행한다. 더 극적으로 놀고 먹고 마시며 행하니,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기쁘게 즐기며 인생을 사는 것으로 보인다. 놀고 먹고 사는 생활을 보면 의인들보다 더 잘된 것처럼 보이나, ‘곡식과 열매’가 없이 잡초와 가라지만 무성하니 불의한 행위대로 그 영이 ‘악한 영’이 되어 ‘지옥, 악한 영들의 세계’로 간다.

<2017년 10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눈의 착시>와 <생각의 착시>가 많이 일어난다.

2. <착시>는 ‘착각함’을 말한다.

3. <눈으로 보는 것>과 ‘실체’는 다르다.

4. <생각할 때>는 좋게 생각했는데 ‘실체’는 달랐다. 이는 ‘생각의 착시’를 일으킨 것이다.

5. <착시>가 일어나면, 똑같은 것도 훨씬 좋게 보이고 좋게 생각된다.

6. <착시>가 일어나면, 똑같은 넓이도 훨씬 넓게 보인다. 고로 확인하지 않으면 다 속는다. 확인하고 비교해 보아라.

7. 사람들이 “이것이 더 좋다.” 하며 자꾸 말하면, 작고 별로인 것도 ‘생각의 착시’가 일어나게 되어 더 좋게 믿어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

8.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사게 한다.

9.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더 좋게 보이고 예쁘게 보인다.

10. <각종 음식이나 물건>도 ‘생각의 차원’에 따라 더 좋게, 혹은 더 안 좋게 착시가 일어난다.
11. <확인하고 아는 자>는 ‘착시’로 인해 더 좋게 보여도, 이를 알고 안 속는다.
12. 두 개를 놓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계산하며 하나하나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
13. <소>가 좋은지, <돼지>가 좋은지는 ‘자기가 쓰는 데’에 달렸다.
14. <형상석>이 좋은지, <소나무>가 좋은지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15. <돈>이 좋은지, <시간>이 좋은지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느냐’에 달렸다.
16. <돈>보다 ‘시간’을 원하고 좋아하는 자도 있다. 그 시간을 가지고 행하여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때문이다.
17. <아는 자>는 그 면의 ‘신’이 된다.
18. <잡신, 미신, 우상 신>은 ‘신’이 아니다. 사람들이 신는 ‘고무신, 짚신 같은 신발’만도 못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절대신’이다. 전능하신 삼위와 같이 되려면, 확인하고 100% 알기다. <절대신>은 100% 안다.
19. <잡신, 미신, 우상 신을 섬기는 자들>은 ‘원시인들’이다.
20. <아는 것>이 ‘권세’요, ‘세력’이다.
21. 알면, 주인이 된다. 알면, 얻는다. 알면, 분별하게 되고 고생하지 않는다. 알면, 희망을 이룬다.
22. 몰라서 일순간에 당하고, 사고 나서 죽는 자가 많다. 몰라서 병으로 죽고,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23. 몰라서 사업도 실패하고, 사랑도 실패한다.
24. 몰라서 사람을 키우고 돕다가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다.
25.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몰라서 행하지 않다가 지옥에 가는 자가 그리 많다.
26. <아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행하여 ‘천국’에 간다.
27. <육>으로 보면, 모르는 것이 많다. 고로 영의 세계에 가서 보아라. 그러면 ‘육’이 보는 것보다 많이 보고 안다. <자기 혼과 영>을 통해 보아라. <자기 혼과 영>은 ‘자기 육’보다 신이 되어 보니, 제대로 보고 안다.
28.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도 ‘육’으로 존재했다면, 인간같이 모르는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신’으로 존재하시니, 모든 것을 아신다.
29. 하나님은 인간도 ‘신’으로 창조하셨다. <육>이 아닌, ‘혼과 영’이다.
30. 하나님은 ‘육, 혼, 영의 세 존재’가 한 인생을 이뤄서 살게 창조하셨다. <육>은 ‘1차원급’, <혼>은 ‘2차원급’, <영>은 ‘3차원급’이다. <육>이 ‘신’이 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대로 알아야 된다.
31.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육’으로는 전달이 안 되니, ‘혼과 영’에게 전달하신다. 신령하려면, ‘혼과 영’으로 보아라.

32. <육신이 잘 때>는 육이 활동하지 않으니, ‘혼’이나 ‘영’에게 계시해 주신다. 다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33. <혼이나 영이 본 것>을 ‘자기 육신의 삶에 해당되는 것’과 연결시켜서 풀어라.
34. <생시>에는 ‘육’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 또는 ‘만물’을 통해 보이시고 “이와 같이 이리하다.” 하시며 깨닫게 하신다.
3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답을 구하고, 생시에나 꿈에서 보여 달라고 하여라.
36. <간구할 때>는 ‘생각’을 집중하고 간구하여라. 육계를 벗어나려면,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생각>으로 영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생각이 ‘혼’과도 일체 되고, ‘영’과도 일체 된다.
37.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행하면, 어린아이나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누구든지 실수와 착오를 일으킨다.
38. 정신일도 하면, 영적으로 행하니 ‘신’이 되어 제대로 알고 행하게 된다.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이나 <혼>이나 <영>이나 ‘집중’해서 봐야 보이고, 자세히 보인다.
2. <행하는 자>만 ‘답’을 받고, 깨닫고 안다.
3.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는 자>만 그 뜻을 깨닫고 안다.
4.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과정’에서 하나씩 깨닫게 된다.
5. 사람이 걸을 때 오른발과 왼발이 서로 받쳐 주며 걸듯이, 사람의 육과 혼도 서로 받쳐 주며 활동한다.
6. <낮에 육이 활동할 때>는 ‘혼’이 받쳐 주고, <밤에 자면서 혼이 활동할 때>는 ‘육의 행실과 생각’이 받쳐 준다.
7. <육> 자체도 행하고, <혼> 자체도 행하지만, 육과 혼이 서로 연결되어 행한다.
8. 어느 때는 <혼>이 ‘자기 육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어느 때는 <혼>이 ‘육이 아예 입어 보지 못한 옷’을 입고 있다. 이는 ‘혼 자체의 행위’로 인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육이 행하는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서 ‘육신의 행위’를 반영하기도 하고, 자기 혼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 행위에 따라 그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옷을 입고 있기도 하다.
9. <육의 세계>나 <영의 세계>나 ‘원칙’이 있다. 곧 <질서>가 ‘원칙’이며 ‘법’이다.
10. <월명동>은 개발하여 옛것이 전혀 없는데도, 꿈에 옛것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다. 이를 두고 성령께 물으니, “혼의 세계다. 육의 세계와 다르다. 혼의 세계에서는 혼의 상황을 보인다. 혼이 활동할 때는 육의 행실과 생각이 받쳐 준다. 고로 혼의 차원이 낮아서 옛것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때 살았던 환경과 상황을 육이 알고 있으니 육의 생각과 연결되어 그때의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 보인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혼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옷도 입고, 행실도 한다. 육의 세계가 천층만층이듯, 혼의 세계도 그러하다.” 하셨다. 깊이 캐 보면 별다른 교훈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계시도 아닌 것 같은데 스쳐 보일 때가 있다. 이는 육신과 연결되어 있으니 ‘육의 생각’이 혼의 세계를 통해 나온 것이다. 고로 거기에도 교훈이 들어 있다.
11. <혼>이 각종 혼의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고 배우기도 한다.

12. <육신>이 상대와 같이 있지 않아도 ‘생각’으로 느껴 보듯이, <혼의 세계>도 상대의 혼이 실제로 그곳에 있지 않아도 ‘생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혼이나 영이 그곳에 올 리가 만무하다. 올 수가 없다. 그때는 계시할 것을 ‘만들어 보인 것’이다. 고로 실제 그 사람이 아닌 가상의 인물이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만 하시면, 그 말이 뇌에 들어와서 ‘실체 현상’이 되어 보인다. 이것을 ‘혼’이 본다. 삼위는 이같이 계시하신다. <육의 세계>에서는 ‘만물’로 계시하여 보이시고, ‘사람’을 통해 실제로 보이신다. 안 되면, ‘환상’으로도 보이신다.
14. <어느 때, 어떻게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니, 성령은 말씀하시길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성령과 성자의 의향에 따라 행하니 그것은 알 필요가 없다. <어느 때,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보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이 중하다. 너희가 행하는 것이 목적이니, 계시를 보이면 ‘행하는 것’에 주력하여라.” 하셨다.
15. 가령 어떤 땅이나 물건을 사라고 계시하시면,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라.” 하고만 말씀하신다. 그것이 왜 좋은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신다. 그래서 인간은 ‘확인’을 해야 된다.
16.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신다. 이는 ‘자기가 깨닫는 것’이다.
17.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도 월명동 땅을 “사라.” 하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만일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은행 융자를 받아서 미리 다 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질서’와 ‘공의’에 의해, 미리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답을 아는 데 있어서 ‘과정’을 통해 그 뜻을 은밀하게 깨닫게 해 주신다.
18. 하나님은 “심판받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회개해라.”, 혹은 “여기를 떠나라.” 하고만 말씀하신다. “왜요?” 하고 물으면, 입을 꼭 다물고 말씀 안 하신다. 왜 떠나야 하는지 제발 이유를 말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의 입을 벌리고 손을 넣으려고 하면, 그 손을 꼭 무신다.
19. 한번은 차표를 사 놓고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차가 타기 싫어서 안 탔다. 그러고서 ‘왜 내가 꼭 타야 하는 막차를 안 탔지? 그 사람과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괜히 별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지?’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내가 잘못하고 물으니 화가 나서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만 생각하고, ‘빨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봐야 하니 어서 가 보자.’ 하며 돈도 없는데 그 시골에서 비싼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그런데 택시가 달리다가 얼마 안 가서 서기에 ‘별써 다 왔나?’ 하고 창밖을 보니, 내가 타려던 버스가 굴러서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치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타고 있던 택시에 다친 사람들을 태워서 병원으로 보내고, 나는 시간에 늦지 않게 겨우 내 일을 봤다. 이같이 하나님은 ‘결과’는 말씀 안 하시고, 은밀하게 피해야 할 길로 가도록 역사하신다. 만일 “가다가 버스가 굴러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니, 그 버스를 타지 말아라.” 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왜 그리되는지 물으니 “버스 기사가 운전을 못해서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인지 물으니 “그것이 아니다. 차가 달리다가 바퀴가 빠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버스가 잘못된 것이냐고 물으니 “그것이 아니다. 버스 기사와 사람들이 확인을 안 한 것이다. 인간이 모르고 살면 그리된다.” 하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와 이야기하다가 목적인 일을 못 이루겠다.” 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핵’만 은밀히 도우시고, 후에 결과를 보고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만사를 도우심을 깨달아라.
20. 하나님은 ‘피해야 할 길’로 은밀히 역사하신다. 후에 “보아라. 깨달았느냐.” 하지도 않으신다. 본인이 물으면, 합당하게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 자꾸 물어보아라.
21.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3000번씩 절을 하고 정성을 드리며 췌덩어리로 만든 신상에게 물어본다. 그들이 신이냐. 그들이 구원시키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사 말없이 선악 간에 대하신다.
22.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절도 안 하고 쉽게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보고, 물어보면 더 쉽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23.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하시면, 왜 가지 말아야 하는지는 이야기 못 하니,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후에

깨닫게 해 주신다. 어느 때는 자기의 차원 낮은 생각으로 확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룰 때도 있다. 어느 때는 ‘선 편’이 속아 주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다. 그때는 확인하면, 죽는 일같이 생각되니 행하지 않게 된다.

24. <사탄>은 ‘계략’을 쓰고 속인다. 그때 선 편은 ‘속아 주는 과정’을 거쳐 간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한다. 이 같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방법>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서 다 모르니, 우선 지금까지 5만 잠언으로 밝힌 대로 행하며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끝까지 행해야 된다. 자신의 부족으로 속고 실수하기도 하나, 끝까지 전능자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행하여라. 때가 되면, 네게 주신다. 또는 다른 자가 행하게 하여 그를 통해 주신다.

25.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도우시고 함께하신다. 고로 본인도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26.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한계’가 있다. 고로 육의 세계에서 통하듯이 ‘하나님의 영’과 안 통해진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령하게 행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더 잘 통하고 교통하게 된다.

27. 어떤 자는 평생 육에 속해 사니, ‘영’이신 전능자와 평생 못 통하고 산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이시니, 땅에 보낸 자의 육을 쓰고 그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그를 통해 소통하게 하신다. 그는 영적이며 신령하니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말씀대로 행하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다.

29.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사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과 의향을 은밀히 말씀하신다. 또한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글로 삼고 화면으로 삼아 그때마다 보이면서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30. <직접 행하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게 하시고, 몸으로 뜨겁게 혹은 차갑게 각종으로 느껴서 알게 하신다.

31. <어떤 만물의 모양과 형상>을 볼 때는 자기가 목적인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연과 뜻’을 두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무가 사람같이 생겼느냐. 백 분의 일도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사연이 있고 뜻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람으로 칭하는 것이다.

32. 어떤 자가 돌이나 나무나 산을 좋아하니, 이를 그 사람으로 칭하며 그 사람의 상징으로 본다.

33. <물>같이 안 생겼어도 “그 사람은 물이다.” 한다.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34. <자기가 정성껏 키우고 만든 것>은 ‘제2의 자신’으로 칭하기도 한다.

35. <계시>로 실체와 연결시키며 스치면서 깨닫게 한다.

<2017년 10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시간은 ‘살아 있는 시간’이 아니다. <잠자는 시간>과 같다.

2.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연결된다.

3. <몸>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생각>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4. <생각>이 서로 닿으면, ‘몸’도 서로 닿은 것이다.

5. <어떤 생각이나>에 따라 좌우된다.
6. <육신에 속한 생각>은 ‘땅’을 면치 못한다. <영에 속한 생각>이라야 ‘하늘’에 닿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속해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
7. <최고로 가치 있고 높은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다.
8. <생각>도 육신같이 늙으면, 제대로 생각을 못 한다.
9. <젊을 때>는 ‘젊을 때 해당되는 생각’을 해야 된다.
10. <육 주관권의 생각들>은 그저 ‘육의 삶에 해당되는 생각’에 불과하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받은 생각>을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행함으로 보여 주어라.
12. <잠언>도 ‘뜻’을 깨닫고 지켜야 각자에게 해당되는 합당한 것들을 얻는다.
13.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행하면’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
14. <생각>도 크게 나누면 ‘1차원 생각’, ‘2차원 생각’, ‘3차원 생각’이 있다.
15. <1차원 주관권>에서는 ‘자기 생각이나 세상에서 겪고 들은 것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같이 종합되어 생각난다.
16. <2차원 주관권>에서는 생각이 보다 집중되어 ‘정리된 생각이나 크고 깊은 것들’만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자기 생각 중에서도 ‘높은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
17. <3차원 주관권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의지, 자기 주관권의 생각’은 흐려져서 잘 기억나지 않고, 마치 눈으로 하나의 사물만 목적하고 쳐다보는 것과 같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에만 집중된다. 그때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느껴져 오고, 깨달아진다. 잊어버린 물건이 순간 생각나듯 생각나고, 영화 필름이 되어 지나가듯 연결되어 생각나고 느껴지고 알게 된다. 이 단계에서 깊이 생각을 일도(一到)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고, 이때 대화하여 물을 것을 물으면 ‘자기 생각’에 전달되게 하시어 깨닫게 하신다. 기록해야 남는다.
18. 이 단계에서 더 깊이 집중하면, 생각한 것들이 ‘형상’을 이뤄서 순간순간 ‘영상’으로 보인다. <자기 혼>이 ‘삼위의 생각’과 일체 되어 ‘자기 육의 생각’에 전해 준다. 이 단계에서 삼위와 ‘일문일답 대화’도 이루어진다.
19. <생각>으로 인해 사람들이 천층만층으로 존재한다.
20. <생각>에 따라 행하고, <생각>에 따라 기쁨도 고통도 받게 된다.
21.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각’을 감찰하시고 축복도 심판도 주신다.<생각의 의>도, <생각의 죄>도 ‘육신이 행한 것’같이 보시고 행하신다. 이는 ‘영의 법’이다.
22. 생각만 했으면, 인간들끼리는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느껴 아시고, 인간의 생각이 형상을 이뤄 행동하는 영상으로 보이니 아신다.
23. <신령하고 영적인 자>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기도 한다.

24. 심리적으로 알거나, 예측하여 알거나, 예감과 직감으로 알거나, 혹은 파장으로 느껴서 그 생각들을 알기도 한다.
25.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하지 않는 자들은 그 생각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26. <산 자>와 일체 되어 행하면, 그와 같이 자기도 '산 자'가 된다.
27. <생각>도 한 번에 높은 차원으로 못 올라간다. 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28. <신령한 생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모두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다스리신다.
29. <생각의 실상 세계>다.
30. <생각한 것>이 '실상'이 되어 보인다.
31. <뇌>에서 생각하고 행하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
32. <뇌>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형상'을 이워서 '영상'으로 보인다.
33. <자기 생각, 자기 영상>이다. 꿈도 이렇게 꾸게 된다.
34. <자기가 원하는 자>도 생각하면 그 '형체'가 보인다.
35. <뇌 신경>은 생각을 일도(一到) 하면, 그 생각이 '영상이나 화면'으로 보이게 한다.
36. <자신이 평소에 보았던 것>이 뇌에 입력되어 기억하고 있으면, 집중하여 '생각'만 해도 그것이 떠오르고 그 형체를 볼 수 있다.
37. <암기할 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후에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할 수 있듯, <사람이나 만물을 볼 때>도 암기 하듯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후에 생각만 해도 그 이미지나 모양, 형상이 떠올라서 보게 된다.

<2017년 10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속적인 동행>이다.<정기적인 실천>이다.<점진적인 역사>다.
2. 보여 주고, 같이 하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라.
3. <뇌>는 같이 해야 '하나'가 된다.
4. <뇌>를 점령하려면, '목적'을 두고 같이 하기'다.
5. <주와 같이 행하는 삶>, <주와 같이 사는 삶>이다.
6. <인간으로서 최첨단의 도전>은 '주를 통해 삼위와 같이 사는 삶'이다.
7. <뇌>는 자기가 행하는 대로 초를 다투며 변화된다.
8. <뇌>는 '생각'과 같다. <생각>이 유동하듯, <뇌>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대로 유동한다.

9. <뇌>를 배우고 쓰면서 행하여라.

10. <뇌의 기능>을 모르고 행하면, 몰라서 실수하고 실패한다.

11. <물>을 가열하면, 펄펄 끓어서 ‘탄 세상의 물’이 된다. 그러다가 식으면 다시 탄 세상이 된다. 이같이 <뇌>도 어떤 일을 두고 거기에 빠져서 좋아 흥분되고 가열되면, 물이 끓어서 탄 세상의 물이 되듯 ‘탄 세상’이 되어 보고 느낀다. 그때는 흥분된 생각대로 보이고 느끼니, 평소에 힘들어서 할까 말까 망설이던 것도 하게 된다.

12. <뇌>가 흥분되어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뇌가 흥분되어 ‘환각 작용’으로 행하면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도 사고, 가서는 안 될 곳도 가게 된다. 그러니 뇌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내가 왜 이리 결정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한다. 고로 뇌가 흥분되어 ‘환각 작용’으로 행한 것은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돈만 날리고 망치게 된다. 이런 자는 ‘술을 먹고 흥분되어 일을 저지른 자’와 같다.

13.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두고 불가능할 때는 ‘뇌’와 ‘생각’을 가열해서 흥분되게 하고, 기뻐서 하게 해야 된다. 평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할 말도 못 하고, 과감하게 못 한다.

14.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는 자들>은 ‘술과 마약’을 하고 뇌를 흥분시켜서 열이 나게 하여 ‘환각 작용’으로 행한다. 그러니 실수하고, 일을 저질러서 망치고, 망하게 된다.

15. <영적인 자>는 ‘기도’하여 뇌도 생각도 ‘영적’으로 가열시킨다. 고로 물이 펄펄 끓으면 그때 고기도 삶고 각종 것을 넣어 익히듯, <기도>로 뇌도 생각도 가열되고 흥분되게 하여 그때 각종으로 행한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자기 뇌와 생각’을 가열하고 흥분시켜서 전도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고, 평소에 모르지 못했던 주관권에도 그때 행하여 오르는 것이다.

16. <뇌와 생각>을 ‘의’로 흥분시켜서 기쁨으로 행하여라. 그러면 그 힘으로 능력이 일어나 능히 행하게 된다.

17. 하나님도 일을 시키실 때는 그냥 안 시키시고, 뇌에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어 흥분시키고 기쁨으로 행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모두 하나 되어 성전도 사게 하시고, 건축도 하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신다.

18. <뇌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열시키고 흥분시켜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전도를 하며, 말씀도 전하고, 찬양으로 영광도 돌리고, 삼위와 주와 늘 사랑하며 행하여라.

19. <뇌와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흥분시켜서 ‘초인’이 되어 행하는 것이다.

20.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뇌와 생각’을 뜨겁게 흥분시켜서 기쁨으로 실천하여라.

21. 어떤 일을 두고 모르고 할 때는 뇌 흥분도, 생각 흥분도 안 됐다. 하나님과 성령이 깨닫게 알려 주시니, 기뻐서 뇌와 생각이 흥분되어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펄펄 끓었다. 역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었다. <하나님이 뇌와 생각을 흥분시키실 때>는 깨닫게 알려 주시고, 기뻐 행하게 하신다.

22. 시골의 한 교회가 이사 갈 교회가 나와서 세 군데를 보고 올랐다. 그 교회는 ‘소교회’라서 보고한 세 군데 중에 ‘중간 것’은 그 교회가 가기에 좀 크고, ‘작은 것’은 미래를 봤을 때 좀 작았다. 이를 두고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큰 것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세 개의 교회가 나왔는데 어떤 것을 택하면 좋을지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너는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시어, 나는 큰 것이 좋지만, 그 교회의 인원수에 비하면 좀 크다고 했다. 이를 두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의논했다. 내 생각은 ‘큰 것을 사면 10년~20년 정도 고생하게 되어도, 사고는 싶다.’였다. 그리고 “원하면 큰 것을 사라.” 하는 감동이 왔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 물으며, 전세살이를 하는 것보다 빚을 저도 갚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깨가 좀 무겁다고도 했다. 마음으로는 ‘큰 교회’가 좋은데 돈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며, 뜻이 있는 교회라면 고생돼도 사게 해 달라고 했다. 이때 깨달아지기를 “작게 하는 것보다 뭉쳐서 크게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다. 작게 많이 하는 것보다 크게 하나 하는 것이 낫다.” 함이었다.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예전에 ‘두 개의 돌’이 보인 꿈의 계시가 떠올랐다. 이 꿈은 ‘흰 돌 두 개’를 깨는 꿈이었다. 하나는 ‘두부모’같이 생겼고, 하나는 ‘손바닥만 한 타원형’으로 생긴 돌이었다. 이 꿈이 떠오르면서 ‘<꿈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티켓’이니, 언제든지 사용해도 된다.’ 함이 깨달아졌다. 이에 하나님께 물으니, “네가 원하는 것을 고르고 선택하면 된다.”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티켓’을 정말 잘 쓰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한 번은 써먹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준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 해 준다.” 하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길, “대기업이 하루 동안 번 돈을 일반 회사가 평생 벌어도 못 따라가듯이, 작은 교회를 여러 개 사도 큰 교회 하나만 못하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게 해 주셨다. 그리고 후에 깊은 뜻을 말씀하셨다.

23.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내 상징’을 다 표해 놓았다. 작아도 ‘상징’이다. 네 상징을 가지고 나 여호와에 속한 것임을 깨달아라.” 하시어 보니, 그 건물에 ‘내 상징’이 있었다.

24. 하나님은 ‘주실 것’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연을 새겨서 주신다.

25.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도 말고, 따르는 자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지도 말고, 나 여호와가 좋아하는 대로 하여라.” 하셨다. 기성의 옛것이나, 새 역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 소유이니 ‘그 일의 사명자’를 통해 건물도 짓게 하고, 합당하면 팔게도 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자를 통해 구상하고 건물을 지으셨으니, 이왕이면 ‘하나님의 최고 목적, 휴거를 이룬 자들’이 ‘하나님 것’을 쓰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또 <하나님이 구상하고 지으신 건물>을 일반 사람들이 쓰면 아깝고 이단들이 쓰면 정말 안 되니, 섭리역사가 가는 곳마다 신부들이 쓸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뺏기지 않고 사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자연성전, 신부 성전>같이 예술성이 있는 작품 교회를 사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모든 결정은 나 여호와가 보낸 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다.” 하셨다. 하나님은 이같이 모든 말씀을 대화로 하시면서, “나의 것을 귀히 여기고,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 하셨다.

26. <하나님의 것>은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가깝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마음에 든다고 사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멀든지 가깝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 또한, ‘주면 후에도 잘할 자’에게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건축하셨으니, 이를 ‘깊이 알아주는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작품>은 건축하는 자도 잘 모른다. <하나님의 작품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비밀을 푸는 것과 같이 어렵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구상하여 지으신 것>도 ‘모양과 형상’은 그냥 보면 눈이 있으니 다 본다. <하나님의 깊은 사연과 뜻을 두고 지으신 것>을 알아야 된다.
2. 하나님이 구상하여 사람을 통해 지으셨기에 그 뜻이 너무도 크다.
3. <월명동>도 ‘주인’이 차지하듯, <하나님이 구상하여 지으신 것>도 ‘주인’이 차지한다.
4. 보내온 교회 사진을 두고 2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건축하신 뜻을 파헤치며 대화했다. 핵을 깨닫고 말하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예 ‘주인의 상징’을 넣고 건축하시고, 그 숫자도 맞춰 건축하신 것을 깨달았다. 지구 세상에 이를 풀 자가 없다. 오직 ‘주인’만 풀고 하나님과 대화한다.
5. 성경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를 받는 자밖에는 푸는 자가 없다.” 했다. <꿈에 받은 흰 돌>도 이를 ‘받는 자’밖에 모른다. <해당되는 자>만 ‘현실’과 연결시켜서 풀기에 다른 자는 못 푼다.
6. <성경>도 ‘예언에 해당되는 메시아’만 푼다. 그러니 다른 자는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으신다.
7. <하나님이 건축하신 월명동 자연성전>의 깊은 뜻을 찾듯이 그 교회 건물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과 사연’을 찾아내

서 보니,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것이 10개 이상 되었다. 이 인봉을 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하니, “다 맞다.” 하셨다.

8. <하나>를 보고 그와 같이 동일하게 알게 된다. <같은 종>은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

9.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연결시켜 보고 고하니, 하나님은 “맞다.” 하시며 “내 작품이 귀한 줄 알고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준다. 너도 그러지 않느냐. 월명동도 나 여호와가 창조한 것을 알고, 그 지역의 모양과 형상의 가치를 알고, 그 뜻을 귀히 여기고 아는 자에게 줬다.” 하셨다.

10. 하나님은 작으나 크나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 주신다.

11. 교회를 사든지, 전세로 가든지 삼위와 주는 ‘뜻’을 두고 보신다.

12. <삼위와 주>를 ‘깨끗하고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는 자들’이 성전을 구하고 찾게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가 되면 좌정하시어 행하시기에, 그 전에 죄도 회개하고 앓을 곳과 설 곳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자기 마음의 성전도, 교회도, 자연성전도 예비하고 준비하여라.

14.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것>을 그때마다 무섭게 실천하여라.

15. <실천의 눈>을 뜨고 대기하다가 보이면, 확인하고 빛을 잡듯 실천하여라.

16. 빨리 깨닫고 분별해야 빛같이 실천한다. 그것의 때가 빛이 가듯 간다.

17. <꿈 계시>를 받으면 그 꿈의 티켓을 쓰게 되니, 꿈을 꾸고 버리지 말아라. 때가 되면, 꿈대로 된다.

18. 꿈을 꿔어도 상대가 책임을 못 하면 깨지기도 한다. 그리고 후에 다시 조건을 세운 자가 그 ‘꿈 계시’를 받고 이루기도 한다.

19. 올해 섭리사의 꿈처럼 경주하듯 뛰면서 실천해야 꿈을 이룬다.

20. 흰 돌을 찾은 꿈도, 좋은 경치의 장소를 찾은 꿈도, 광야의 모래벌판에서 큰 뱀을 발견하고 찢어 잡은 꿈도 모두 삼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꾸는 꿈들이다.

21. 꿈에서 큰 뱀을 찢었는데, 다른 곳에서 죽어서 찾기 힘들었다. 그 뱀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찾아서 해결했다. 이 꿈은 서울의 1178교회를 사는 꿈이었다.

22. 한번은 꿈에 지팡이 정도 되는 크기의 가늘고 긴 뱀이 보였다. <실체>를 찾아보니, ‘긴 작품 돌’이었다. 이에 하나님께 이 돌은 큰데 왜 가늘고 긴 뱀을 보였냐고 물었다. 팔뚝같이 굵은 뱀으로 안 보이고 왜 실뱀으로 보였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다른 돌과 비교했을 때 작으니 실뱀으로 보인 것이다.” 말씀하셨다. 꿈을 꾸고서 약간 찜찜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허벅지만 한 뱀이 나와서, 그 뱀을 보고 놀라서 땀을 뺐다. 꿈에서 깨서 이 꿈은 대박이라고 하면서 이런 돌을 찾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고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긴 작품 돌을 왜 실뱀으로 보였는지 네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돌을 큰 뱀으로 보였다. 새 티켓을 주는 꿈이 아니다.” 하셨다. 그래서 그와 같이 생긴 돌들 중에서는 이 작품 돌이 큰 것임을 알았다.

23. <꿈>에서 ‘보화의 티켓’을 받으려면,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것과 섭리사의 것을 받아서 쓰는데도, 조건을 세워야 받게 된다. 받으면 ‘지혜’로 판단하고 그때마다 ‘실천’해야 된다.

24. <꿈>으로도 주시고, 생시에서 ‘만물’로도 계시하신다.

25. 올해 섭리사는 모두 ‘보화의 티켓’을 받았으니, 경주하듯 뛰기다. 그러면 꿈을 이루게 된다. <꿈에서 준 티켓>으로 ‘원하는 것’을 주신다.
26. 하나님은 “큰 교회만 달라고 하지 말고, 수백 명씩 전도해서 부흥시켜라.” 하셨다. 그러면 큰 것을 주신다고 하셨다.
27. 하나님께서 교회를 졌으면, 첫째 전도하고 부흥시켜서 빈자리를 채우기다. 둘째, 그리함으로 2부 예배까지 드리기도. 한국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씩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최고로 부흥된 교회다. 이같이 인원이 많아서 2부 예배까지 드리는 표적을 낳아라. <월명동 자연성전>도 인원이 많아서 두 번씩 예배를 드리게 해야 큰 소리치게 된다.
28. 1부 예배만 드리고서 교회가 좁다 하지 말고, 2부, 3부 예배까지 드려라. 그래야 후에 좋은 교회를 사게 된다.
29.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돼야 하나님은 ‘거대한 궁’ 같은 교회를 주신다.
30. <월명동>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니, 앞날을 보시고 일반 건물이 아닌 ‘자연성전’을 지어 주셨다. 일반 건물을 성전으로 지으려면 엄청나게 크게 지어야 되고, 돈도 엄청 든다. 많은 생명을 전도해야 하나님은 궁 같은 큰 곳을 성전으로 주신다. 건물이 많아도, 사람이 적으면 일반 건물 작은 것이나 사게 된다.
31. <전도>를 많이 해야 큰 곳을 주신다. 1000명, 2000명씩 해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연결시켜서 큰 곳을 사게 하신다.
32. 크게 해야 크게 된다.

<2017년 10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경>을 못 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도 못 맞는다.
2.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기다렸지만, 성경을 못 푸니 하나님이 오셨어도 못 맞았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쓰고 오셨다. 이것을 몰랐다. 고로 모르고 불신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3. <이 시대>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며 재림을 기다린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또 성경을 못 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명을 주어 보낸 이 시대 사명자’를 모르면, 그가 새로운 구원역사를 이루러 왔어도 배척하고 핍박하고 불신하며 미워하게 된다. 불신하고 미워하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한 성경의 법에 따라 그를 살인한 바가 되어 메시아를 못 맞는다.
4. <성경>을 못 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으면, 새 시대가 왔어도 ‘이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믿고 모시며 살아야 하는지 ‘시대 신부로서 사는 방법’을 모르면, 삼위와 그 보낸 자의 사랑의 신부가 되어 살지를 못한다.
5. <이 시대>는 ‘기다리던 주’를 맞고 휴거됐으니, 기다리던 때와는 다르다. 지금은 ‘신부로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신과 사는 방법>이다. 모르면, 못 산다.
6.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삼위를 찾고 부르고 사랑하며 이야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가 원하는 일을 하며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
7.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함은 ‘하나님이 늘 자기에게 역사하시며 같이 산다는 것’이다.
8. <자기 신앙>이 살아 있으면, 역사하신다.

9. 이 시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삼위와 같이 사는 삶’이다. 우상을 섬기듯 하며 믿는 것이 아니다.
10. <결혼한 자>가 결혼 생활을 하듯 ‘같이 살아가는 휴거의 삶’이다.
11. <신랑과 신부의 삶>이다. 이것을 못 하는 자는 정말 몰라서 억울한 삶을 사는 자다.
12. 육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육으로 대하신다.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며 육으로 대하니,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보아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셨다. 육으로 대하면 육으로 보여 주시기도 하고, 영으로 대하면 영으로 보여 주시기도 한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영으로 대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며 그와만 통하지 않으시고, 합당한 것은 ‘육’으로 대하여도 역사하시며 통하신다.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연 만물로 계시하실 때>는 계시하고자 하는 만물이 ‘실체의 모양과 형상’과 조금 닮았어도 그와 상관없이 계시하신다.
2. 어떤 건물을 사는 것이 뜻인지 아닌지 생각할 때, 뜻이라면 그 건물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보여 깨닫게 하신다. 건물이 전혀 사람처럼 안 생겼어도 그중에 비슷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건물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보여 깨닫게 하신다.
3. <글자>를 ‘정자체’로 쓰지 않고 ‘초서체, 흘림체’로 써도 자기가 목적인 글자를 나타내듯이, <자연 만물을 보이며 계시하실 때>도 그중에 비슷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목적한 것’을 계시하신다.
4.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글’로 사용하시며 계시하신다. <그 글>은 ‘깨달음’으로 읽는다.
5. 어느 때는 목적인 곳에 가야 되는지, 혹은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두고 기도하면, 그때 마침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든지, 비행기가 가는 것을 보든지,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든지, 곤충이 가는 것을 보든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어 “가라.” 함을 깨닫게 하신다.
6. <만물>을 가지고 깨닫게 계시하신다.
7. 어느 때는 ‘축소’시켜서 계시하신다. 방에 구멍이 있어서 가끔 개미들이 이 구멍을 통해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때 방바닥에 개미 한두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이면서, “지금 구멍으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함을 깨닫게 하신다. 그 구멍을 보니,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같이 축소판을 보이시며 “많다.” 함을 계시하실 때도 있다.
8. 많이 배워야 많이 안다.
9. <축소판으로 보이는 것>은 그 ‘실체’가 크기 때문이다. 고로 자기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축소하여 보이신다.
10.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체’로 볼 수가 없으니, ‘자기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만물’로 그 현상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11. <계시>는 ‘자기와 연관시켜서 보는 것’이다. <자기 주관권의 계시>와 <자기와 연관된 상대에게 해당되는 계시>다. 확인하면, 밝혀진다.

12. <사진>은 ‘방향과 각도’에 따라 보통으로 찍기도 하고 작품으로 찍기도 하듯이, <말씀>도 ‘표현과 설명’에 따라 보통으로 전하기도 하고 최고로 전하기도 한다.

13. <월명동>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보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최고로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구상대로 된다.

14. <사진>은 ‘각도’가 생명이다. 빛이나 초점 등 다른 것은 사진 기계가 조종한다.

15. 사람이 어떤 존재물을 볼 때, 같은 존재물이라도 ‘각도’에 따라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보통으로 보이기도 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이 생각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더 믿어지게 되기도 하고, 더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이기도 하고,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이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깨달을 때>는 ‘천지 만물’을 통해 보고 깨닫는 각도도 있고, ‘자기 인생’과 연결시켜 보고 깨닫는 각도도 있고, ‘영의 세계’를 통해 보고 깨닫는 각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보고 깨닫는 각도도 있다.

17. <작은 모래알만 한 개미>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큰 개미가 있냐고 하며 놀란다. <사기꾼>은 이같이 10배, 100배, 1000배로 ‘확대’해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킁다.

18. <사기꾼>은 안 되는 것을 킁다 하고, 유익이 적은데 10배, 100배, 1000배로 유익이 있다 하며 돈을 10배, 100배, 1000배로 투자하게 킁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전술’이다.

19. <사기꾼>은 자기도 같이 하니 마음 놓으라고 하며 안심시키고 사기를 킁다. 그래야 믿기 때문이다.

20. 가령 깊은 물인데, 사기꾼은 물이 얇고 물고기가 정말 많다고 하며 같이 들어가자고 킁다. 거짓말이면 물에 빠져 죽는데, 위험하면 자기가 들어가겠냐고 하면서 사람들을 꺾어 데리고 들어간다. 자기도 같이 킁다고 하니 그 사기꾼을 믿고 물속으로 들어간다.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때 사기꾼은 잠수해서 투자한 것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사기꾼은 수영을 배워 왔기 때문이다. 안 배운 자만 깊은 물에 빠져서 피해를 보고, 겨우 물 밖으로 나와서 안 죽은 것이 다행이라고 킁다. 이것이 ‘사기꾼들의 수법’이다.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나 좀 보자.” 하시며 사기꾼을 데리고 가 킁다.

21. <사람>은 ‘각도’에 따라 크거나 작게 보이기도 하고, 멋있고 아름답거나 보통으로 보이기도 킁다.

22. <사기꾼>은 ‘좋은 각도’만 보여 킁다. 그 뒤에는 ‘썩은 것, 못 쓰는 것’을 숨기고 킁다.

23. <사람>은 앞뒤, 좌우, 위아래로 ‘6개의 각도’는 봐야 그 존재를 제대로 보게 킁다. 고로 ‘여러 각도’로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여라.

24. <인식>을 나쁘게 하면, ‘좋은 것’도 나쁘게 생각킁다.<악한 자들이나 악평자들>은 ‘좋은 자’를 나쁘게 인식시키려고 악평을 하나, 그 말을 듣고 확인해 보면 모두 거짓이다. 고로 그들이 칠해 놓은 거죽을 벗겨 보니, ‘황금 역사, 황금 인생, 황금 진리’였다. 이들의 수법을 알고 그 말에 유혹되지 말라고 전해 킁다.

25. <수십억, 수백억짜리 수석>도 ‘각도’를 달리해서 잘못 보면, 형상이 없는 쪽만 보고 “별로다.” 하며 가치를 모르고 버린다. 고로 다른 자가 ‘제 각도’로 보고, ‘6개의 각도’로 다 보고 확인하여 가치를 알고 주워 간다. <자기>도, <다른 사람>도 이같이 ‘제 각도’로 보고, ‘6개의 각도’로 다 보아라.

26. <사람 얼굴>도 사진을 찍으면, 어떤 자는 우측이 최고 멋있게 나오고, 어떤 자는 좌측이 최고 멋있게 나온다. 하나님은 자기를 멋있게 창조하시고 저마다 특별히 주신 하늘의 운이 있으니, 자기 인생 한탄만 하지 말고 모두 찾아라.

27. <월명동 성자바위>도 ‘제 각도’로 보고 ‘성자의 형상’을 찾았다. 그리고 여러 각도로 보고 확인하여 결국 6개의 형상을 더 찾았다.
28. <두꺼비돌>도 처음에는 땅에서 캐낸 자들이 ‘제 각도’로 못 보고 일반 돌로 생각했다. 고로 월명동에 가져올 때도 일반 돌로 보고 사 왔다. 월명동에 돌을 내려놓고 ‘제 각도’에서 보니 ‘두꺼비 형상’을 볼 수 있었다. 성령이 이를 알고 감동을 주어 사 오게 하신 것이다.
29. <월명동 야심작 작품>은 ‘측면’에서 보면 최고로 멋있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인다. <정면>으로 보면 최고 높은 곳까지 37m 정도로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면 250m의 길이가 다 보인다. 고로 정면에서 볼 때보다 ‘측면’에서 볼 때 상상도 못 하게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보인다.
30. <소나무>도 ‘최고 멋있게 보이는 각도’가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31. <제대로 보기>, <제대로 생각하기>다.
32. <월명동 자연성전>은 ‘3.16 휴거기념관 옥상’에서 보면 전체가 최고로 잘 보이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보인다.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도 ‘6개의 방향, 6개의 각도’에서 보아라.
34. <각도>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 ‘보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
35. <음식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맛이나 영양분이 달라지듯이, <사람>이나 <만물>도 ‘각도’에 따라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도 다 다르다.
36. <이단 종교들이나 각 교파들>이 성경 해석을 그리하는 것은 ‘그 각도’에서만 보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 ‘360도 모든 방향과 각도’에서 보고 성경을 풀며 그 말씀을 전한다.
37. <구시대 종교>에서는 그 각도에서만 보고 ‘옛날 것’만 평생 전한다. <새 시대>가 왔어도 그들의 선조들이 했던 것만 전하니, ‘옛날 것’이 뇌에 못이 박히듯 박혀서 빠지지 않는다. 마치 녹음해 둔 것이 반복되어 돌아가듯 한다.
38. <한 이단 종교>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한다. 이를 절대 교리로 삼고 생명시하며 전한다. 천국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이 없다고 하니 ‘비진리’다.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은 것>은 모두 ‘무’로 사라진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어느 각도에서 인생을 보고 생각하고 행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2. <돌이나 나무 등 각종 만물과 지역의 형상>을 볼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어느 각도에서 보고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3. <의와 선>으로 ‘악과 불의’를 파괴하면, ‘의’에 성공한다.
4. <악과 불의>를 보면, ‘생각’으로 파괴하여라. <악과 불의>에 동참하지 말아라.
5. <불>을 만지면 손이 타서 화상을 입듯, <악과 불의>는 ‘생각’을 태워서 화상을 입히듯 해를 준다. 고로 불의한 생각이 오면, 바로 소각하고 파괴시켜라.

6. <인생>은 ‘삶의 각도 요리’다.
7. <음식>도 ‘여러 각도’로 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여 맛있게 요리하듯, <인생>도 이같이 살아가야 된다.(이 모든 것은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8. <인생>은 ‘각도 맛’이다.
9. <만물>은 ‘각도 맛’이다. 그로 인한 기쁨과 흥분이다.
10. <글자>도 ‘각도’에 따라 다른 글자가 된다.
11. <각도>는 ‘방향’이다.
12. <방향>은 ‘모양과 형체’를 좌우시킨다.
13. <신앙의 삶>도 자기 개성대로 ‘제 각도’를 찾아라.
14. <인생>도, <만물>도 ‘360도 모든 방향과 각도’로 보아라. 그중에 그 존재물의 최고의 멋과 최고의 맛과 최고의 미를 가진 ‘특기와 개성’이 있다.
15. 다른 각도에서 봐서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다고 속인 것이 아니다. 고로 ‘제 각도, 제 방향’에서 보고 대하면 된다.
16. 어떤 자는 ‘왜 저런 자와 사랑하지?’ 하지만, 그 사람을 제 각도와 제 방향으로 보고 좋은 것이 있어서 사랑한다.
17. <물건>에 단점이 있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산다.
18. 어떤 자는 ‘왜 그 돈을 주고 그런 건물을 사지?’ 하며 이해를 못 해도, 사는 자는 겉보다 속이 좋으니 산다. <사람>도 그러하다.
19. 어떤 건물은 ‘겉’을 보면 좋아도, ‘속’을 보면 기둥이 많아서 좁고, 또 기둥을 빼서 넓게 쓰려면 건물이 무너지니 싫어서 안 산다. 그런데 모르는 자는 ‘왜 저런 건물을 안 샀지?’ 한다.
20. 어떤 자는 ‘왜 저런 집을 사지? 그 값이면 다른 집을 사겠다.’ 한다. <그 집을 산 자>는 ‘각도와 방향’을 보고 산 것이다. 고로 무지한 자에게 말하길, “집 옆에 사시사철 물이 솟아 흐르는 샘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산 것이다. 집은 다시 지을 계획이다.” 했다. 그제야 자기 수준과 차원을 깨닫고 무지를 장사 지냈다.
21. <각도>는 ‘개성’이다.
22. 어떤 자가 메마른 황토밭을 사니, 그 사람을 보고 “농사 망했다. 미련하다.” 했다. 그런데 황토밭을 산 자는 그 땅에 농사를 안 짓고 황토를 파서, 공장을 세우고 흙벽돌을 만들어 팔았다. 고로 거부가 되었다. 이같이 ‘각도와 방향’을 모르면, 악평하며 별 무지한 짓을 다 한다.
23. <각도의 하나님>이시다.
24. <안 될 때>는 ‘다른 각도’로 보고 하여라. 그러면, 된다.
25. <돌을 세울 때>도 ‘밑돌’로 ‘큰 돌’을 꺾지 안 되었다. ‘작은 돌’로 꺾지 되었다. 이같이 사람을 쓸 때도 큰 자만 쓰지 말고, 어린 자나 10대도 써야 된다. 어려도 합당하게 쓰여질 때가 많다. 모두 ‘다양한 각도’다.

26. <온전한 각도와 방향>을 찾아서 하나님께도 쓰여졌다.
27. <사격을 할 때>도, <화살을 쏘 때>도, <공을 찰 때>도 ‘각도와 방향’이 안 맞으면 헛수고다. 인생도 그러하다.
28. <각도의 미>다.
29. <사람>도, <만물>도 ‘각도의 형상과 미’다.
30. <동서남북, 위아래 6군데 각도>로 다 봐야 ‘존재물의 형상과 모양’을 제대로 안다.
31. <동쪽>에는 ‘일출’이 있고, <서쪽>에는 ‘저녁노을’이 있고, <북쪽>에는 ‘백설이 뒤덮인 광야’가 있고, <남쪽>에는 ‘푸른 밀림’이 있고, <위>에는 ‘푸른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아래>에는 ‘물이 솟는 내와 강과 바다’가 있다. 이 같이 ‘각도와 방향’을 다 봐야 그 존재 세계를 안다. 만물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그러하다. <각도와 방향>대로 보고 배우고 깨달아야 다 보고, 차원을 높이게 된다.
32. <존재물의 각도와 방향>대로 자세히 깊이 보아라. 존재물의 모양과 형상 하나하나가 모두 ‘핵’과 연결되어 있다. 이같이 <사람>도 ‘각도와 방향’대로 자세히 제대로 보아라.
33. <월명동>도 크게 ‘6개의 방향’으로 모양과 형상을 보아라. 동서남북에서 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밑에서도 보아라.
34. <월명동을 볼 때>는 ‘6가지’로 보아라.첫째, ‘월명동 지역의 모양과 형상’이다. 형상의 보물들이다. 둘째, ‘누가 났느냐’다. 성자가 그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다.셋째, ‘어떤 하나님의 뜻을 폈느냐’다. 넷째, 하나님이 ‘이곳에 무엇을 구상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만들었느냐’다.다섯째, ‘어떤 전설과 예언을 이루었느냐’다.여섯째, ‘어떤 자들이 몰려들었느냐’다. 시대의 택한 자들이 천 년간 끊이지 않고 몰려든다.
35. <하나님의 자연성전 월명동>을 깊이 파헤쳐 그곳의 숨은 뜻과 보화를 찾아내듯, <자기>도 ‘월명동’같이 보고 개발하여 숨은 특기와 개성의 보화들을 찾아내라.
36. <하나님이 숨긴 뜻이나 땅의 보화>를 찾아내면, ‘자기’도 속이 시원하고 기쁘고 흥분되고 ‘하나님’도 답답한 마음이 짝 사라져서 기뻐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기뻐 잔치하게 된다.
37. <각도와 방향>을 제대로 보고 행하면 ‘땅에 숨긴 보화’도 찾고, 자기에게서 ‘자기 보화’도 찾아낸다.
38. <각도와 방향>을 잘 모르고 인생길을 가면, ‘고통의 골짜기’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도 가게 된다.
39. <각도와 방향>을 잘 찾아서 인생길을 가면, ‘황금성 천국 길’로 가게 된다.
40. <방향>을 잘못 잡고 인생길을 가면, ‘악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가게 된다.
41. 신앙 안에서 ‘방향’을 잘 잡아 주어라. 절대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 개성에 따른 사명과 방향대로 행하기다.
42. 가령 월명동 운동장 가운데 서 있다 하자. 자기가 자연성전 안에 있는 어떤 작품을 찾아가려는데 ‘방향’을 다르게 잡고 가면, 평생 그 길에서는 못 찾고 못 만난다.
43. <각도와 방향>을 제대로 하고 인생길을 찾아가기다. <절대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가는 길>이 ‘온전한 방향’이요, ‘온전한 길’이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방향’이다.

44. <방향>을 잃으면, 헤매게 되고 고통이 온다.

45. <방향>을 잃으면, 사탄이 끌고 간다.

46. 하나님이 절대 뜻을 두고 역사하셔도 모르고 ‘방향’을 잃고 딴 길로 가서 거기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안 오니, 애타게 기다리다 늙고 끝난다.

47.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제대로 푸는 방향’으로만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신다.

48. <방향>을 못 찾으면, 뒤에서 서성대다가 인생 해를 넘기고 끝난다.

49. <하나님의 역사>도 ‘방향’을 모르면 기다리다가 끝나고, 뒷마당 잔치를 해도 눈치를 못 채고 눈감고 끝난다.

50. <각도와 방향>을 못 찾으면, 정신이 돌아서 돌아간다.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한 사람>을 보고 그를 통해 ‘전체의 장단점’을 알고 깨달아라.

2. <한 사람의 장단점>을 보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깨달아라.

3.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진 것>도 ‘한 개’만 보면 개성으로 존재한다. 전체를 보면, 그 모양과 형상은 같다.

4. 처음에 잘못 인식하면, 다시 올바르게 인식할 때까지는 그같이 생각하게 된다.

5. 5년 전에 한 ‘단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을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체를 보니 아니었다. 실체를 보고 올바르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처음에 인식한 대로 생각한다.

6. <뇌>는 인식한 대로 기억한다.

7. <뇌>는 ‘흰 종이’와 같다. <흰 종이>에 ‘글’을 쓰면 써 놓은 대로 쓰여 있듯, <뇌>도 ‘인식’한 대로 그것이 맞으나 틀리나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8. <성경>도 처음에 그릇되게 배운 것이 뇌에 인식되면, 다시 온전하게 알기 전까지는 평생 그같이 알고 행한다.

9. <뇌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을 때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 개가 있으면, 분별을 잘 못 한다.

10. <뇌가 아주 쉽게 잘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한 개가 있을 때 혼동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한 개만 있으면, 기억을 잘한다.

11. 가령 여러 개의 사진이 있어도 그 사진이 모두 같은 사람을 찍은 것이면, ‘한 사람’이니 혼동되지 않고 기억을 잘 한다. 만일 여러 개의 사진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찍은 것이면, 그때는 혼동하게 된다.

12. 암기를 하거나 기억할 때 숫자가 많아도 전체를 ‘한 개’로 인식하고 기억하면, 전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13. <뇌와 생각>은 ‘두 가지’만 해도 이것이 저것인지, 저것이 이것인지 곧바로 혼동된다.

14.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게 행하실 때는 ‘두 가지’로 행하신다. 고로 사람들은 그 신호사를 모른다고 했다.

15. 가령 자기 뒤에 두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돌을 던지면 누가 던졌는지 모른다. 그러나 한 사람만 있으면, 혼동 없이 “네가 던졌구나.” 하고 금방 알게 된다.
16. <생각>도 ‘한 가지’만 생각해야 그 면에서 혼동 없이 확실하게 알게 된다.
17.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도 생각이 ‘하나’로 일체 돼야 잘 들어가게 되고, <영의 세계를 볼 때>도 ‘하나’만 봐야 제대로 보게 된다.
18. <뇌의 기억법>은 ‘한 가지로 합쳐서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잘 기억한다.
19. 가령 ‘돈, 지갑, 반지, 시계’를 각각 다른 장소에 놓으면, 4배나 더 기억하기 어렵다. 한 군데에 합쳐서 놓으면, 4배나 더 기억하기 쉽다.
20. <자기가 기억을 잘하는 것>에 ‘기억할 것’을 일체 시켜 놓으면, ‘자기가 기억을 잘하는 것’을 통해 ‘다른 하나’도 바로 연상이 되어 떠오르게 된다.
21. <뇌에 입력시킬 때>는 ‘같은 모양과 형상’으로 입력시키는 것이다.
22. 가령 자기가 늘 보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은 안 잊어버린다. 고로 자기가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자기가 늘 보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합쳐서 ‘하나’로 보면, 안 잊게 된다.
23.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작품>은 매일 그 모양과 형상을 생각하니 안 잊는다. 고로 어떤 사람이나 존재물을 잊지 않으려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일체 시켜서 매일 생각하고 반복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생활할 때도, 하느님과 대화할 때도 반복해서 생각하면, 안 잊게 된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시하실 때>도 ‘자기가 좋아하고 늘 기억하는 것’을 통해 ‘계시하실 것’이 그것과 겹쳐서 생각나게 하시며 “이와 같이 그도 그러하다. 이와 같이 그 존재물도 그러하다.” 하신다.
25. <뜻 있는 자를 깨닫게 계시하실 때>도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육의 세계에서나 영의 세계에서 보이면서 “그도 그러하다.” 하시며 그와 겹쳐서 보이신다.
26.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중심자 한 사람’을 극히 사랑하시면서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신다.
27. <공통성 계시>다. 곧 <같은 모양과 형상, 같은 주관권의 것>은 ‘하나’로 보시고 “이와 같이 다른 것도 그러하다.” 하시며 계시하신다.
28. <뇌>는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뇌>는 ‘간단하게 정돈된 것과 질서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
29. 복잡하면, 머리가 자극을 받아서 아프다.
30. <자기가 잘 기억하는 사람>에다 ‘다른 사람’을 겹쳐서 기억해라. 그러면 안 잊게 된다.
31. <자기가 좋아하는 존재물>에 ‘다른 존재물’을 일체 시켜서 기억해라. 그러면 안 잊게 된다.
32.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이와 같다.” 하면 이해를 잘한다. 그러나 ‘모양과 형상이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이와 같다.” 하면 이해를 잘 못 한다. 모양과 형상이 다르니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는 생활에서 ‘비유’로 계시를 잘 주신다. 그런데 <비유한 것>과 <비유의 실제 대상>이 서로 생긴 모양과 형상이 다르니, 이해를 잘 못 한다. <비유>로 계시하시면, ‘비유한 것의 질과 양과 기능’ 등을 보

고 실체와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된다.

34. <비유>는 ‘비유한 것’이 ‘실체’와 똑같아서 빗대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양과 형상이 달라도, 그중에 ‘비유한 목적’과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비유하는 것이다.

35. 가령 <사람>을 ‘동물이나 식물 등 각종 존재물’로 비유하면, 그 특성이 비슷하거나 같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다. <비유한 존재물의 모양과 형상>이 ‘사람’과 똑같지 않아도, 기본적인 특성이 비슷하기만 하면 그것을 보고 비유한다.

36. 한 기간 동안, 혹은 그 순간에 자기와 겪는 것이 비슷하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와 같다.” 하시며 ‘성경의 인물’을 빗대어 계시하신다.

37. <예수님의 노정>과 비슷하면, 역시 ‘예수님’을 빗대서 깨닫게 하신다.

38.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비유’로 계시하시는데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 한다. 사람들은 흔히 ‘비유하는 것’과 ‘실체’가 똑같아야 이해를 한다. 세상에 똑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 특성이 비슷하거나 같으면 서로 연결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삼위에는 ‘비유’로 계시하시며 깨닫게 하신다.

39. <금단의 열매>와 <과일>은 모양과 형상이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두 가지의 비슷한 특성’을 보고 비유하신 것이다.

40. 하나님도 예수님도 ‘더러운 자들’을 두고 ‘돼지’로 비유하셨다. 사람의 모양과 형상 중에 돼지와 같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지체 하나도 닮은 것이 없다. <더러운 것>을 깨달으라고 ‘돼지’로 비유하신 것이다.

41. <하나님과 예수님>은 ‘반석’으로 비유했다. 그 몸에 ‘돌’ 같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하여 깨닫게 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1월 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곧이곧대로 말해야 잘 알아듣는다. <물>을 두고 “물 같다.” 해야 잘 알아듣고 맞다고 한다. <사람>을 두고 “물 같다.”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는 성장 중인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 지능의 차원이 낮으니 비유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 것이다. <기성인들>이 이와 같아서, 성경에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온다.” 하니 구름이 ‘사람’을 비유한 것인지도 모르고 하늘 구름만 쳐다보고 기다린다. <뇌>가 그릇되게 인식된 대로 일생 동안 그리 생각하며 살고, 그 후손들도 그 인식대로 살아간다. <성장하여 아는 자>만 깨닫고 그 말씀의 주인이 되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2. 나이를 먹고 컸어도 ‘생각’이 어리면, 그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다. 하나님은 ‘생각과 행위’대로 대하시며 그 차원에 맞게 섭리하신다.

3. <어린이들>에게 병아리 두 마리를 놓고 “이 병아리와 저 병아리가 닮았지?” 하면 쉽게 이해하고 닮았다고 한다. 그런데 병아리 옆에 아기를 데려다 놓고 “이 병아리가 아기와 닮았지?” 하면 이해를 못 하니 안 닮았다고 한다. <모양과 형상>은 안 닮았어도 ‘비슷한 특성’을 두고 빗대서 말하니 이해를 못 하고,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어른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면 어른은 쉽게 이해한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기성인들’은 성경을 곧이곧대로만 푸니, 그릇되게 성경을 알고 산다. <비유로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릇되게 풀고 믿고 사니, ‘실체 역사’를 해도 모르는 것이다.

4. <비유>로 계시했으니, 정확히 계시한 것이다.

5. 계시하면, ‘그 계시를 풀 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6. 하나님이 땅에 역사하실 때는 한 남자가 성장된 신부와 결혼하듯 하신다. 성장하지도 않고 이해도 못 하는 기성의

어린이 같은 자들은 구경꾼도 안 된다. 성장된 자들이 결혼하고 살아도 어린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차원에 해당되는 일만 하고 살듯 이 시대가 그러하다.

7. <사람>은 사람을 확대한 ‘지구’로 비유한다. 비유하면, 어른이나 알고 이해한다. <어른>이란, ‘깨달은 자’를 말한다.

8. <사람의 눈>은 ‘해’로 비유한다. <성경>은 이같이 ‘특성’을 가지고 비유하며 계시하였다. <메시아가 오는 것>도 이같이 ‘비유’로 말씀하였으니, 모르는 자는 모른다.

9. 어느 때는 사람을 두고 ‘소’로 비유하고, 어느 때는 그 행위를 두고 ‘고래’로 비유하고, 어느 때는 ‘개미’로 비유한다. 그때마다 ‘자기 행위와 처지’를 두고 비유하니, 깨달아라.

10.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병들어서 아픈 자에게는 ‘약’으로 비유한다. 꿈이나 생사에서 ‘자기 처지와 행위’대로 비유하며 보여 주신다.

11. <만물로 비유하여 계시하심>을 빨리 알고 깨달아야 된다.

12. 어느 날 하나님이 ‘작은 귀뚜라미 한 마리’를 보이시며 빨리 잡으라고 하셨다. 귀뚜라미를 잡으니, “교회 건물에 대한 보고가 오니, 오면 귀뚜라미를 잡듯 빨리 잡아라.” 하셨다. 귀뚜라미가 뛰어가니, “너도 저같이 뛰어라.” 하셨다. 그 귀뚜라미가 한동안 안 보이니, “너도 저같이 안 보이게 은밀히 행하여라.” 하셨다. 오래 있다 귀뚜라미가 나타났는데, 추운 날이었다. 이에 “네가 보기를 원하던 자가 온다. 귀뚜라미가 추운 곳에서 떨어졌듯이, 그의 마음이 떨고 있다.” 하셨다. 후에 귀뚜라미가 죽었다. 기도하니, “옛것은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 귀뚜라미가 죽듯 모두 끝난다.” 하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작은 곤충을 보이시면서 거기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해당되면 그것을 통해 ‘세상만사가 되어지는 것’을 계시하셨다.

13. <하늘의 구름>을 보면, 그 모양과 형상이 순간 빠르게 변화한다. 한번은 구름을 쳐다보았더니, ‘사람 형상’이 보이다가 순간 ‘토끼 형상’이 보였다. 무엇으로 토끼인 줄 알겠느냐. <토끼의 귀>가 보이니, ‘토끼구나.’ 하는 것이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실오라기만큼만 그 형상이 보여도 차원을 높여서 깨달아야 된다. 성령님은 그런 자가 ‘실력자’라고 하셨다. <한 사람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계시로 보이신 것과 연결하여 깨닫게 하신다. 고로 “토끼같이 그가 귀엽다.” 함을 읽게 되었다. 계속 구름을 보니, 순간 구름이 ‘뱀’같이 변했다. 이를 보고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여라.” 함이 읽어졌다. 그 구름이 또 몇 초를 두고 변하면서 ‘천사의 날개’가 되었다. 이를 보고 “그가 인(人)천사 역할도 하는구나.” 함을 읽었다. 그다음에 구름이 ‘새 모양’이 되었다. 이를 보고 “그 사람이 어릴 때는 신앙이 마치 ‘새’와 같았다.” 함을 읽었다. 그리고 새의 부리가 ‘독수리 형상’으로 변하면서 추상적으로 보였다. 이는 “새 같았던 자가 이제는 커서 독수리 새끼가 되었다.” 함이었다. 그리고 후에 구름이 커지면서 ‘큰 여자 형상’으로 보였다. 그 구름이 ‘성령님’으로 보이면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계시하시며 “읽어 보아라.” 하신 것임을 깨달았다. 이같이 한 만물을 보고 자기가 깨닫기만 하면, 성령님은 계속 계시하신다. <실력 있는 자>는 차원대로 읽고 배운다.

14. <만물>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는 ‘화면으로 보이는 글’이다.

15. 성령님은 ‘감동’으로도 계시하시지만, ‘실제 만물’을 통해 보이며 계시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실감 나고 좋으냐.

16. <성경>에도 ‘비유’를 써서 은밀히 말씀하셨다.

17.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네가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만물로 스쳐 보이면서 마치 영화 화면처럼 보이며 계시한다.” 하셨다.

18. 구름은 그 모양이 순간 변하니, 실체와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계시를 보이는 목적은 깨닫게 해 주어 급히 행하게 하는 것이니, ‘비유로 보인 것’에 ‘실체의 모양과 형상’이 조금만 보여도 그것을 통해 목적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고로 비유로 보인 것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도 그것은 그리 중하지 않다. 목적을 깨달으면 된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만물 계시를 잘 읽는 전문가는 ‘볼펜 끝’만 보여도 ‘볼펜’으로 분별하고 읽는다.

빨리 차원을 높여 만물의 글을 읽어야 많이 보고 깨닫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 성령도 답답하지 않고 수시로 만물의 글을 보인다.” 하셨다.

19. <글>을 배우면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읽으면서 각종으로 써먹듯이, <만물의 글>도 전문가가 되어 매일 쓰고 읽으면서 행하도록 본격적으로 배워라.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계시하지 않아도, ‘자기 혼’이 알고 만물을 통해 육에게 계시해 주기도 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기가 평소에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이때다.” 하시며 순간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22. <실체>는 그렇지 않아도 추상적으로 순간 그리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이기도 한다.

23. 성령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다. 육신의 지체를 지칭하듯이 ‘영의 통구멍’이라고 표현했더니 “그럼 안 된다. 한 번도 사람같이 배설물이 나온 일이 없으니까.” 하셨다. “그럼 뭘로 표현하지요?” 하니, “너만 알라.” 하셨다. “여자도 이성 관계를 안 했으면 ‘처녀’라고 해야지 ‘부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가 그 말을 부인한다.”라고 하셨다.

<2017년 11월 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안 하고 보면, 모른다.

2. <바다>도 썰물 때 보거나 밀물 때 보면, 평소에도 그런 줄 안다.

3. <그 목적인 것>만 보고 <저 목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고 본 것’은 못 본다.

4. 평생 봤어도, ‘생각을 안 하고 본 것’은 못 본다.

5. 평생 과일을 먹었어도 먹을 때 ‘그 과일의 모양과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먹으면, 그 과일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제대로 모른다.

6. 이사를 가서 4년, 5년씩 살았어도 생각하지 않고 보면, 자기 집에 못이 박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집 주인이 벽에 못을 박지 말라고 해서 아쉬워도 못을 안 박고 살았는데, 이사 가는 날 보니 그 자리에 못이 있었다. 못이 박혀 있었어도 생각하지 않고 보니 4년, 5년간 살았어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못을 박지 말라고 했구나 하고 그제야 알았다.

7. 매일 보면서 살아도, 그 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모른다.

8. <월명동 성자바위>도 형상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니 못 찾았다. 수천 명이 찾았어도 못 찾았다. <찾은 자>가 그 면의 ‘주인’이다.

9. <휴거>도 알고 행한 자가 ‘주인’이다.

10. <성경>도, <편지>도 그 면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읽어도 모른다.

11. <설교>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12. <월명동>도 생각하고 봐야 ‘존재물’이 눈에 보인다.

13. <월명동의 별 모양 형상>도 생각하지 않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수백 년간 봐어도 ‘별 모양의 산봉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한 자들이 없었다.

14. <장단점>을 생각하고 봐야, 행할 때 그 존재물의 장단점이 보인다.

15. <월명동의 3.16 휴거기념관>도 생각하고 보니, ‘3.16 휴거’를 기념하는 건물로 지어졌음을 3년 만에 알았다.

16. <사람의 형상과 모양>도 먼저 깨닫고 봐야 보인다.

17. <계시>도 먼저 차원을 높여 깨달아야 그 면에 해당되는 계시가 온다.

18. 모르는데 주면, 줘도 모르고 못 느끼기 때문이다.

19. 알아야 그 면에 해당되는 계시를 하신다.

20. <눈뜬 자>에게 그 존재물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해 주거나 <자기 입장>에 대해서 말해 줄 때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2. 자기는 알기 때문에 대강 말하고, 보통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상대는 초행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설명한 것의 70%밖에 이해를 못 한다.

3.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와 목적과 핵’을 깨닫게 해 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제대로 알고 전해야 된다. 성령이 말씀하시길, “본문의 의미와 목적과 핵을 제대로 모르고 전하는 자가 전체의 30%도 더 된다.” 하셨다. 조은 목사는 말씀을 정리하고, 또 선생이 면회 때 설명을 해 주니 그 의미와 핵을 제대로 알고 전한다.

4. 어떤 음식을 요리한 것인지 모르면, 그 음식에 대해 못 깨닫는다. 깊은 비밀은 자신이 깨달아야 된다.

5.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들은 본문을 꼭 제대로 깨닫고 알고 전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교역자가 모르면, 부교역자들과 본문을 잘 이해하는 자들이 꼭 알고 전하라고 하셨다.

6. 교역자들 중에 확인해 보니, 섭리사에 온 지 오래된 목사인데도 ‘설교의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고 있었다.

7.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찾던 자가 옆에 스쳐 지나가도 모른다.

8. <신약성경>도 2000년 동안 수백억 명이 읽고 해석하고 했어도 ‘예수의 재림, 휴거, 부활, 말세 심판’ 등 그 근본을 제대로 모르고 해석하니, 모두 실패했다. 그렇게도 깨달으라고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육적인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고 푸니 실패한 것이다.

9. <설교자들>은 꼭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해야 제대로 힘 있게 외친다. <말씀을 듣는 자들>도 꼭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10. <본문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면 ‘본문을 설명하는 설교’를 또 해야 된다.

11.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의 심정을 다 전달하려면 글로 10장, 15장, 25장씩 써야 된다. 그래도 이해를 못 하는 자도 있다.

12. 만나서 말로 하면 간단하다. 이는 그때그때 상대가 이해하는 상황을 보면서 말을 해 주기 때문이다.

13. <하나님의 말씀>은 쉽다. 우리의 생활을 보시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하며 책망도 하시고, “자기 생각을 중심하고 사는 자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주관권의 왕이 되어 사는 자다. 섭리사는 오직 나 여호와와 성령과 성자다. 따르는 자들은 모두 지체다.” 하시며 ‘우리가 사는 것들’을 두고 말씀하시니 쉽다.그런데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면, 설교를 해도 본문만 외치고 끝나게 된다. 본인이 이해를 못 해도 전달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해를 못 하고 전했으니 ‘육성’으로 전한 고로 천법에 의해 성령이 ‘성령 역사’를 안 하신다. 합당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14. 가령 10명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하자.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면, 다른 자들이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바로 직감한다.

15. 설교할 때 설교자가 본문을 제대로 모르고 전하면, 강약을 조절하며 잘 외쳤어도 교인들이 알고 보고가 온다.

16. 의미를 모르고 설교하면 무슨 해를 받게 되는지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 심정’을 모르니 말씀대로 실천을 못 한다. 또한 그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근본을 모르니 차원을 높여 못 올라간다. 또한 말씀을 들었어도 무미하고, 꺼림칙하다. 마치 땀이 나서 목욕탕에 때를 밀러 갔는데 찬물만 몇 바가지 끼얹고 나오는 격이다. 화장실에 대변을 보러 갔는데, 소변만 보고 나오는 격이다.

17.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매일 ‘주가 원하고, 삼위가 원하시는 중요한 핵’을 행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것만 행하고 사는 자와 같다. 그러면 제때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곤고하고, 답답하고, 심정이 타고, 얻을 것을 못 얻고, 마음속에 한숨의 강이 마르지를 않게 된다.

18. <설명을 잘하는 자>는 ‘지혜를 받은 자’다.

19. <말>을 잘하려면, ‘이 시대 잠언’을 많이 읽어라. 이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유능함을 얻는 방법이다.

20. <설교>는 한 가지나 두 가지, 혹은 많을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전한다. 그런데도 글귀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런 자는 ‘노력과 기도가 부족한 자’이며 ‘지능이 부족하고, 생각이 다른 데 빠진 자’다. 교인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너무 많다. 물어보아라. 선생은 지금도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볼 것은 물어본다. 무슨 교역자의 권위를 세우느냐. 세워 봤자 그 자리다. 겸손히 체면 다 버리고 부지런히 배워서 전 교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사명을 하는 것>이 더 큰 것이다.

21. 자기 사연을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전해 주지 않으면, 70%밖에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새벽 계시다. <이 음성 한마디, 한 줄>을 가지고 지금까지 잠언으로 썼다. 이같이 <설교>도 ‘음성 한마디, 한 줄’이다. 그것을 설교로 설명한다. 고로 ‘그 한마디, 한 줄’을 알라는 것이다. <핵>은 설교의 맨 앞에도 있고, 조금 더 논하다 보면 나온다.

22. <사람>도 사랑할 때 ‘핵’을 모르면, 몸만 더듬다 만다. <말씀>이라는 멋있고 아름다운 자가 있는데, ‘핵’을 모르고 전하면 몸만 만지다 끝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목이 타는데 감질나게 병뚜껑으로 몇 번 물을 마신 것 같다고 하며 주가 해 달라고 편지가 온다. 고로 그 사람에게 “네가 모두에게 전해 주어야.” 하며 이 사연을 이야기하고 했다. 그러한 설교가 나간 것은 내가 겪은 일을 두고 성령께서 “교인들도 그러하다.” 해서 나간 것이다. 또 어떤 것은 본인이 고백한 것을 두고 그것은 말 안 하고, “전체 중에도 그런 자가 많다.” 하고 말하기도 한다.

23. 어떤 목사는 기성에서 왔는데, 이성애 빠져 살면서 자기는 700선 휴거가 됐다고 한다. 이 사람은 휴거가 안 됐다. 혼자서 자기 주관으로 하는 말이다. 또, 어떤 자는 자기는 선생님이 나오시면 가까이서 모시고 살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유혹한다. 주는 그 사람을 안 쓴다. 모두 혼자서 자기 주관으로 하는 말이다.

24. <역사>는 ‘앞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현실’에서 매일 지나간다. 고로 매일 지나가는 역사에 올라타서

같이 뛰어야 된다.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설명하실 때 ‘심정’으로, ‘영’으로, ‘생각’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만물’로 보이면서 하시기에 자세히 하신다.

2.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줘야 다양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3. <주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삼고 행하는 자는 주의 몸이 되어 사는 자다.

4. <주>가 “이리 하자.” 했을 때 즉시 하는 자는 ‘주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삼고 사는 자다.

5. <주>가 “이리 하자.” 했을 때 이해도 못 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하며 즉시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머리를 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살아왔기에 그리하는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몸’이 되어 한다는 것은 보통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매일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7. <주>를 절대 ‘머리’로 삼고, <자기>는 ‘몸’이 되어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주는 안다. <주를 자기 머리로 삼고 사는 자>는 ‘주와 같은 머리’이니, 계속 통한다.

8. <주>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몸’이 되어 하루만 살아 보아라. 이것도 어렵다고 못 하는 자는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자기 몸으로 행해 왔기에 그러하다. 고로 자기 머리, 자기 몸이라서 전혀 못 한다. <주 머리>로 자기는 몸이 되어 행해야 된다.

9. 어떤 것을 놓고 “종일 주를 머리로 삼고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주는 “종일 내 심부름 해. 마치 종이에 기록해 둔 것을 보고 물건을 사 오듯, 내가 기록한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해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주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몸이 되어 한 것이다. 모두 이같이 주를 머리 삼고 자기는 몸이 되어 행해라.

10. 섭리사의 한 기관의 목사가 주의 뜻이 아닌데 마치 주의 뜻인 것처럼 따르는 자들을 대하여서 이를 성령이 계시해 주시어 알게 됐다. 고로 그 목사에게 편지해서 “네가 교역자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바로 고쳐라.” 하고 교정하게 했다. 교역자, 부서 지도자들이 거의 제 머리를 가지고 산다. <새 머리>는 ‘휴거’도 그 급으로 된다. 말로는 좋게 주가 자기 머리라고 하지만, 주 머리가 그 정도면 다 망친다. <주 머리>가 ‘자기 머리’가 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주 머리’를 통해 그에게 하루에도 수많은 말씀을 하신다.

11.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하셔도 자기 머리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진다.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인식하고 나면, 그때서야 ‘왜 내가 이리했지?’ 한다.

12. <이단 종교 지도자들의 영>이 지옥에 가 있어도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모른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천 분의 일도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 이것도 비밀이 있다.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면, 육지와 수만 리 떨어져 있으니 육지는 주먹만كم도 못 본다. 이같이 그 주관권의 세계에 있으면, 다른 데는 일점일획도 못 보고 거기서 좋게 된다고 가르친 대로 믿고 그 생각이 마치 쇠가 굳듯이 굳어서 달리 생각을 못 한다.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 만일 그들 중에 그 주관권의 세계를 안 믿고 거기서 나오면, 다른 곳을 보고 자기가 있던 세계가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깊이가 천 리도 넘는 깊은 동굴에서 나온 자>는 다시는 거기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 그 깊은 동굴로 다시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다.

13. <이단 종교를 따르는 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들이 망하게 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곳에서 계속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한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봐야 알 수 있으니, 하루

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결과를 알고 싶다고 하며 확인이 안 되니 기도할 때 힘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지구 세상에 이단 종교를 따르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천 리나 되는 깊은 동굴에 있으니 마치 1000m나 되는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와 같아서 거기서 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매일 만물로 계시하시니 저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해 달라고, 또 자기가 믿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 깨우쳐 달라고 기도했다. 매일 이같이 기도한다. 그런데 내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정말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어느 날 편지가 와서 보니, 자기가 길을 가는데 어떤 자가 우리 이야기도 한 번 들어 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해 궁금하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불교는 무엇이 다른지, 또 내세가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묻기에 모두 설명을 해 주며 가르쳐 주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들지 정말 몰랐다고 했다. ‘기도하니 이같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왔듯이, 매일 온 세계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겠구나.’ 함을 확인했다. 또 이단 종교에 있다 온 자들도 있으니, 이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기도한 자가 전도한 격이 된다. 어떤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명단을 가져다가 매일 10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 300명이나 되는 자들이 대부분 하나님 쪽으로 돌아와서 기독교의 각 교파에 다니고 있었다고 했다. 모두 기도하여라.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일을 놓고 그 일에 대한 기회가 여러 번 온다면,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제일 하기 쉽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는 점점 하기가 어려워진다.
2. 잠을 자면 못 느끼듯, 생각에서 잊으면 못 느낀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역사하셔도, ‘생각’이 잠을 자고 있으면 모른다.
4.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덩이’로 녹여 만들어서 이같이 아름답게 되었다.
5. <천연 굴>도 ‘불’로 녹여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되었다. 너도 네 생각을 ‘말씀과 성령’으로 녹여 자연스럽게 신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6. 하나님은 만사의 모든 것을 만족하게 창조하셨다. 흠 없이 창조하셨다. 고로 만족하신다.
7. <한 번의 삶>이다. 또 살라고 하면, 지루한 것이다. <반복되는 코스>는 지루하다.
8.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허무하다.” 하셨을 것이다.
9. <혼과 영>을 창조하셨으니, 육이 죽어도 허무해하지 않으신다.
10. <신>은 ‘모양과 형상’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신다.
11. <마음을 뺀 자>가 ‘몸을 뺀 자’다.
12.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라.
13. 사랑하라. 배워라. 행해라.
14. 좁아서 몸이 스친다고 아쉬워 말아라. 창조주가 그 모양과 형상을 일부로 그같이 세밀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15. 좁으면, 좁은 것을 상징한 모양과 형상들이다.
16. 크면, 큰 것을 상징한 모양과 형상들이다. 크기가 큰 천연 굴 ‘터널 형상’으로 되어 있다.

17. <철창>을 만들기는 쉬워도, ‘가는 바늘’을 만들기는 어렵다.
18. <우주 만물>과 <사람>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여서 그리도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다.
19. <원형과 타원형>은 ‘극치의 형상을 이루는 기본’이다.
20. <원형과 타원형>은 ‘한 쌍의 짝’이다.
21. 하나님은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상하시어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다.
22. <원형과 타원형>이 상호 일체 되어 존재물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조화의 미’를 나타낸다.
23. 하나님은 사람도 ‘원형과 타원형’으로 구상하시고 창조하셨다.
24. <원형과 타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각종 모양과 형상이 이루어진다. 타원형을 세운 모양과 눌린 모양들이다. 또한 <사각형>는 하나의 ‘각이 진 원형과 타원형’이다.
25. <창문이나 문>도 ‘네모진 원형과 타원형’이다.
26. <황금 비율>도 ‘타원형’에서 이루어진다.
27. <타원형의 황금 비율>, <각이 진 타원형의 황금 비율>이다.
28. <사람>도 ‘타원형의 황금 비율’이다.(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주셨다.)
29. <지구>도 ‘타원형’이다.
30. <과일>은 ‘원형과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1. <집>은 ‘타원형’이 더 아름답고 멋있다.
32. <일반 건물>은 ‘원형과 타원형’ 모두 그 모양과 형상이 멋있다.
33. 몽골 초원에 있는 집을 보면, ‘원형으로 된 집’이 많다.
34. <운동장>도 ‘타원형’이다.
35. <그릇>도 ‘원형과 타원형’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36. 하나님은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도 각 지체를 ‘원형과 타원형’으로 창조하셨다. 가령 <다리>는 ‘긴 타원형’이고, <다리의 둘레>는 ‘원형’이다.
37. <사람의 몸 전체>는 ‘타원형’이고, <몸의 둘레>는 ‘원형’이다.
38. <아파트>는 ‘세운 타원형’이고, <그 둘레>는 ‘원형’에 속한다.
39. <양옥집이나 별장, 일반 집들>도 모두 ‘타원형’에 속하고, 그 둘레는 ‘원형’에 속한다.

40. <원형과 타원형의 조화>다. <원형과 타원형의 조화>가 가장 잘 맞으려면, ‘크기’가 맞아야 된다. ‘크기 구상’이다.
41. 전능하신 하나님은 ‘원형과 타원형의 두 가지 핵’을 기본 구상으로 하시어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 ‘각이 진 모양과 형상’들을 창조하셨다.
42. <천연 굴>을 보면, 모두 ‘원형과 타원형’이다.
43. <우주의 행성들>도 모두 이같이 창조하셨다.
44. <하나님의 창조의 구상>을 알고 만물을 보아라. 그래야 만물의 구상과 구조를 ‘하나님의 차원’에서 깨닫게 된다.
45. <원형과 타원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기본 형상’이다.
46. <타원형>은 튼튼하다. <다리>도 ‘타원형’이면 튼튼하다.
47. 손도, 손가락도, 머리도, 몸도 모두 ‘원형과 타원형’으로 창조하셨다.
48. <타원형>은 각이 없으니 모든 면이 다 부드럽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만족하다.
49. <작품>은 ‘원형과 타원형’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
50. <천국의 건물과 각종 존재물들>도 거의 ‘원형과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51. 이 말씀은 ‘천연 굴’에 대해 설명하면서 배운 것이다. <눅힌 타원형>은 ‘B급’이다. <세운 타원형>은 ‘A급’이다.

<2017년 11월 1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연관시켜야 ‘답’이 나온다.
2. <꿈>과 <생시>를 연관시켜야 ‘꿈이 풀어지는 답’이 나온다.
3. 꿈이 희미하게 펼쳐서 ‘이게 무슨 꿈이지?’ 하고 생각하다가 ‘뭘 생각하나. 신경 쓰지 말자.’ 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길, “꿈의 계시를 생시와 연관시켜서 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래도 신경을 안 쓸 것이냐?” 하셨다.
4. <꿈>은 희미해도 <생시>에서 확실하게 보고 겪으니, 생시와 연관시켜서 풀면 꿈도 더 확실하게 생각난다. 만일 꿈이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도, ‘생시의 것’을 보고 아니 그로 인해 ‘꿈의 것’도 알게 된다.
5. <꿈>은 ‘생시’에 행하면 연관되면서 깨달아진다.
6. <꿈>은 ‘푸는 길’이 수백 가지다.
7. 똑같이 보여도, 생시와는 다르다.
8. 꿈에 한 공장이 보였는데,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상자를 저장하는 곳도 있었다. 상자를 저장하는 통 같기도 했고, 기계 같기도 했다. 매끈한 풍선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청소기로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한 남자가 그 기계에 비누칠을 하고 손으로 힘차게 싹싹 닦고 있었다. 청소하니, 깨끗해졌다. 그 공장에 있는 다른 기계들은 청소를 못 했다. 나머지 꿈은 희미해서 기억이 안 났다. ‘이것이 무슨 꿈일까? 이 공장은 무엇일까?’ 하며 새벽기도 전에 씻는

데, 꿈이 생각났다. 그리고 1/10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꿈을 100% 알게 됐다. 어떻게 알았겠느냐. <생시>와 연관시키니 신경을 안 써도 바로 알게 됐다. <꿈에 나온 공장>은 ‘내 방’이었다. <하나의 기계를 깨끗이 닦은 것>은 ‘새벽기도 전에 샤워하며 때를 밀고 깨끗이 씻은 것’을 보인 것이었다. 또 <아직 청소를 못한 것>은 ‘각종으로 처리해야 될 서류’를 보인 것이었다. 꿈이 희미하고 가물가물해서 생각이 잘 안 났어도, ‘생시’와 연관시켜서 보니 “이것을 꿈에 비유로 보였구나.” 하고 100% 알게 되었다. 꿈은 희미해도 생시에서는 확실하게 보고 겪으니 100% 알게 된다. 잠언으로 자세하게 표현하여 기록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 주는 계시를 이같이 풀라고 전해 준다.

9. 이 꿈을 풀어 보라고 하면, 모두 죄를 회개하는 꿈으로 풀고 ‘죄 중에 하나만 회개한 것이다.’ 하고 풀 것이다. 주인이 안 풀면, 다 그리 푼다. 꿈을 곧 자가 해석해 준다. 그가 주인이니, 주인이 해석해야 100% 푼다. 이같이 <성경>도 ‘주인’이 오면 온전히 푼다. 그가 성경을 제대로 아니, 역사를 이루어 간다.

10. <기성인들>은 성경을 이치에 맞지 않게 풀고, 그때의 현실과 연관시켜서 합당하게 풀지 못하니, 지금도 하늘 구름만 쳐다보며 늙어 간다. <주인>이 아니라 못 푸는 것이다.

11. 꿈에 ‘깨끗이 닦았던 그 기계’는 철로 된 원형으로 공장 안에 있던 많은 기계 중에서 길이 가장 매끄러웠다. 기계 안쪽에 붙은 먼지를 닦으니, 매끈해지면서 ‘옥색으로 페인트칠이 된 걸면’이 나왔다. 이는 새벽기도 전에 샤워를 하며 때를 밀었더니 ‘매끈한 살’이 나온 것을 보인 것이었다. 이같이 <꿈에서 본 것>을 <생시>와 연결하고 연관시켜야 ‘꿈의 비유’가 풀어진단다.

12. <성경>도 ‘현실’과 연관시켜서 풀어야 풀어진단다. <현실>은 ‘실체’다. <꿈>이 ‘상징’이듯 <성경>도 ‘상징’으로 말했다. 고로 ‘현실’과 연관시켜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을 깨달아라.

13. <현실의 것>을 두고 ‘비유’로 계시한 성경의 말씀이다. 고로 ‘현실의 것’과 맞아야 된다.

14. 성령께 꿈에서는 왜 돌려서 이야기하고, 일부만 보이냐고 물으니 “생시는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현실의 것은 너희가 다 안다. 고로 꿈에 비유로 보이고 희미하게 보였어도, 현실의 것과 연관시키면 100% 다 안다.” 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꿈에 보인 것>을 반복해서 생시에 ‘실체’로 보이니, 꿈에서 비유로 보인 것과 일부만 보인 것을 생시에 ‘현실의 것’과 연관시키면 된다.” 하셨다.

15. <꿈>은 각종으로 다양하게 ‘비유’로 표현해서 깨닫게 해야 되니 필요하다.

16. <꿈>은 생시에 보일 수 없는 것도 보인다. 이치를 깨달아라.

17. 똑같은 월명동도 ‘꿈으로 보일 때’는 그 기본 형상만 같지, 전혀 다르게 보인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보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비하고 더 웅장하게 보인다.

18. <영의 눈>이나 <혼의 눈>으로 보면, 훨씬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달리 보인다.

19. <월명동 자연성전>은 ‘육의 성전’이면서 ‘영의 성전, 신령한 마음의 성전’이기도 하다.

20. 어떤 자는 꿈에 월명동의 돌들이 무너지고 잡초가 나서 흉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실제로 그런지 그 먼 길을 달려가 본다. 모르니 그리한다. 가서 봐도 아무 이상 없이 똑같다. 고로 가서 확인하고 기도하니, ‘자기 심령의 상태’를 보여 준 것임을 깨닫고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자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만물 계시로 즉시 스쳐 보이시며 ‘자기 심령 상태가 정리된 것’을 보이셨다.

21. <자연성전이나 자기 교회>를 보이시며 ‘자기의 심령 상태’나 ‘사람들의 마음과 행위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

22. 예전에 어떤 자가 주께 말하기를 “꿈에 보니 월명동의 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섭리사가 끝나는 것을 봤어요.” 하며 혼자 걱정했다. 고로 그에게 “환난이니 기도해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섭리사에 해가 온다고 하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풀고, 미리 나가야 된다고 하며 환난을 못 이기고 나갔다. <앞날의 환난>을 보이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계시한 꿈을 스스로 그릇되게 풀고 사망으로 갔다. <꿈>은 ‘비유’로 계시한 것이니, 현실과 연관시켜서 ‘자기의 심령 문제’로, ‘시대 환난’으로 풀어야 된다. 자기 문제, 시대 환난으로 인해 무너난 자기 심령의 상태를 보이고, 그로 인해 자포자기한 상태를 보인 것이다. 꿈에 그리 보였으면, 무너진 앞산 돌을 또 쌓았듯이 다시 기도하고 하면 된다.

23. <성경>도 자기 스스로 풀면 망한다고 하였다. <육>으로 억지로 풀면 망한다.

24. <성경에 환난 때나 말세 때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며, 달은 핏빛으로 변한다고 한 말>을 육적으로 억지로 푼다. 말세가 되면 별이 떨어지고, 천지개벽하고, 지구가 불에 타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산 자들은 휴거되어 하늘로 간다고 하며 마치 야담(野談)을 풀듯 푼다. 종교인들이 그리 푼다. 비결(秘訣)의 예언가들도 그리 풀었다. 말세가 지나갔는데 별도 안 떨어지고 지구가 녹아 버리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라 모르니, 그들은 항상 설교가 끝나면 도망가고 없었다.

25. 성경을 억지로 풀면 망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모두 육적으로 풀었다. 고로 그들이 푼 대로는 안 이루어졌다. 성경에 그같이 예언된 것은 ‘새 역사가 시작되면 구 역사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들이 빛을 잃는다.’ 하는 계시다. 또, 성경은 문자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문자대로 풀고 믿고 산 자는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듯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예언의 말씀이다. 결국 그 말씀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항상 지도자들을 두고 ‘해, 달, 별’로 말씀하셨다. 요셉에게 계시하실 때도 ‘해, 달, 별’로 계시하셨다.

26. 꿈에 겨울 산에 화려한 꽃이 가득 핀 것을 보았다. 겨울에 꽃이 그같이 피겠느냐. 이는 자기 심령을 보인 것이거나, 혹은 모든 자들이 이같이 꽃이 피는 신앙을 하니 그 심령과 상태를 ‘비유’로 보인 것이다.

27. 자기 스스로 육적으로 풀면, 실상과 다르니 실망하고 ‘왜 이러지?’ 한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으로 풀고 생시에 자기가 수고하여 행했으면, 열게 된다.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해석>을 쪼개며 하여라.
2. 쪼개면, ‘답’이 나온다.
3. <문제>를 쪼개면, 이쪽이나 저쪽 중에 하나가 답이다. 쪼개면 안다.
4. 조사하고 확인하여라. 이것이 ‘쪼개는 역사’다.
5. 쪼개 놓으니, 과일도 속이 썩은 것을 알았다. 고로 ‘답’이 나온다.
6.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7. 사람이 백만 명이 있어도 ‘의(義)의 저울’에 달면, ‘의와 선 쪽’인지 ‘불의와 악 쪽’인지 둘 중에 해당되는 답이 나온다.
8. <하나님의 의의 저울, 공의의 저울>은 명지털 하나만 더 달아도 바로 안다. 숫자로도 구분된다.
9. <꿈의 계시>는 각종으로 풀리기도 하니, 한 가지로만 보지 말아야 될 꿈도 있다.
10. <꿈에 청소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된 것’을 보인 것도 되고, ‘개인이나 섭리사의 질서가 정리된 것’을 보인 것도 된다.

11. 꿈에 똑같은 자가 나타났어도, 어느 때는 생사에서 그와 직접 만나는 것을 계시한 것이고, 어느 때는 그와 연관된 자를 만난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다. 또는 자기가 찾던 것을 찾는다는 계시도 되고, 잊었던 것이 다시 생각난다는 계시도 된다.
12. <꿈>은 자기 육과 혼과 영이나, 혹은 자기와 가까운 자나, 혹은 민족이나 세계에 해당되는 것을 수만 가지로 보인다.
13. 어떤 것은 ‘육의 세계’와 상관없이 ‘영의 세계’만 보라고 보일 때도 있다.
14. 꿈을 잘 풀려면 잠언과 말씀을 많이 보고, 평소에 자기가 받은 꿈 계시를 풀 수 있게 기도를 꼭꼭 해 놓아라.
15. 꿈속의 그 현장에서도 물어보아라. 그러려면 기도해 놓아야 된다.
16. 다니엘이 그가 받은 계시에 대해 물어도, “먼 훗날 네 민족의 앞날에 대한 계시다. 봉함하여라.” 하며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될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비밀이니, 때가 안 되면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가르쳐 주면 적들이 더 괴롭히기 때문이다.
17. 성경을 제대로 풀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예정된 형벌 기간’을 아니, 언제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는지 알게 된다.
18. <민족의 형벌 기간>은 ‘40년, 혹은 400년’이다. <세계>는 ‘4000년’이다. <개인>은 ‘4년, 혹은 3년 6개월’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에 해당된다. 형벌 기간이 지나도 못 나오면 ‘40년, 혹은 400년’을 더 받고, 그때도 못 나오면 이미 지옥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영영 못 나오게 된다.
19.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20. 형벌을 받아도, 하나의 생활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만 본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벗어나려 갖은 수고들을 한다.
21.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인해 스스로 형벌을 받고 있어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도 말씀하지 않는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22. 자기 행위대로 고스란히 선악 간에 받는다.
23. 하루만 겪어 보아라.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보아라.
24. 세상에 ‘행위대로 받지 않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도 못 찾으신다고 했다. 성령님께도 물으니, 없다고 하셨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땅의 실력자가 한번 찾아보아라.” 하시기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헛수고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행위대로 받지 않는 자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지 답을 찾아보아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받아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했다.그러니 하나님은 “100% 맞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자기가 행한 대로 스스로 받고, 나 여호와도 성령도 갚아 주니, 시대 말씀을 중심해서 그때마다 삼위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행하며 의를 행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쳐라.” 하셨다. (아멘.)
25. 인생은 ‘선(善) 안에서 좋은 것과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기쁨이며 희락이다.
26.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행하면, 그 법에 의해 행위대로 깨끗이 갚아 주신다.
27. 힘들어도, 어려워도, 억울하게 해도, 자기를 막아도, 자기 힘을 빼려고 해도 모두 행하여라. 행하면, 얻고 누리게 된다.

28. <원수 사탄과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이겨 놓고 하나님께 말하여라.

29. <방에 있는 벌레>를 잡아 없애고 밥도 먹고 잠도 자라. 이같이 신앙 안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며 말씀을 들어라.

30. 잠을 자는데 벌레가 물어서 즉시 방에 있는 물건을 옮기고 장판을 들어냈다. 찾고 보니, 작은 벌레가 죄를 짓고 틈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이것이구나.” 하고 살충제를 계속 뿌렸다. 행한 대로 갚아 주었다. 이제 알았으니, 수시로 약을 뿌린다. 잠언을 쓰다가 또 뿌렸다. <사탄>도, <행악자>도 ‘신앙의 잠을 잘 때’ 물어뜯는다. 고로 기도하고 물리쳐라.

31. 성령님은 사람이 시켜서 하시지 않고, 좋아서 해 주신다.

32. 성령님은 억지로 행하시지 않고, ‘기도’하면 좋아서 행하신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권위와 권세>는 ‘자신의 집과 자기 소유의 환경,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나타난다.

2. <천국>에서도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자신의 집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환경’으로 나타낸다.

3. <자기 육신의 행위와 공적대로 얻은 영의 권위와 권세>가 곧 ‘자기의 집과 자기 영이 거하는 환경’이다. 이는 육의 세계에서든 영의 세계에서든 그러하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속한 천국의 집이나 환경>은 세상의 어떤 왕이나 재벌이 지은 궁 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아예 흉내도 못 내게 창조해 놓으셨다.

5. <세상의 왕들이나 재벌들이 지은 집이나 그들이 사는 환경>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고로 인간의 한계 내에서 집이나 환경을 꾸며 놓고 산다. 모두 ‘육신의 집’들이다. 100평, 200평, 1000평, 만 평, 10만 평, 혹은 100만 평 정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하시는 곳>은 인간들이 아예 흉내도 못 내게 크고 웅장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집이나 궁>은 ‘한 나라’만큼 크고, <정원>도 ‘지구’만 하다. 어떤 곳은 지구 10개, 혹은 100개, 혹은 100만 개를 합쳐 놓은 크기만 하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이와 같다.

6.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 자체’로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으로도 나타내신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이니, 그 크기가 우주보다 더 크고 아예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크다. 아예 비교를 하지 말아라.

7. 세상에서도 자기의 권위와 권세를 ‘자기 집이나, 자기가 소유한 환경, 계급’ 등으로 나타낸다. 천국도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천국에서의 자기 위치>는 ‘자기 육신의 공력과 공적’으로 받은 위치다. 집이나 환경, 자기가 소유한 것들 역시 ‘자기 육신의 공력과 공적’으로 받게 된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면서 행한 대로 주신 것이다.

8. 어떤 재벌이나 명예가라도 세상에서 권위와 명예를 ‘얻을 시간’은 있는데, 이것을 ‘누릴 시간’이 없다.

9. 세상에서 권위와 명예를 얻기는 하는데, 육신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이 짧으니 누릴 시간이 없다. 집이나 자기가 거할 환경이나 자기 소유의 재산을 얻으면, 이미 해가 서산에 기울기 시작한다.

10. <영의 것>은 얻기가 힘들지만 ‘누릴 시간’은 영원하다.

11. <자기가 행함으로 몸에 쌓은 것>은 안 뺏긴다. 곧 ‘건강’이요, ‘지식과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원본>이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원본’이 귀하다.
2. 본인이 쓴 글이나,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자기 물건이나, 자기가 찍힌 사진이나 각각의 원본은 모두 ‘본인’이다. 본인이 직접 쓰고 만든 것이니, ‘자기 몸’과 같다.
3. 하나님은 ‘원본’을 보이시기 전에 거기에 해당되는 ‘상징적인 것’을 많이 보이신다. 곧 ‘원본의 상징물’이다.
4. <원본의 상징물>을 보면, ‘본 형상’을 거의 알게 된다. 분야별로 보인다.
5. 어느 때는 ‘사람’을 ‘만물’로 비유하여 보이고, 어느 때는 ‘만물’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보인다. <만물>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보일 때는 그 만물이 극치의 것이라, 극치인 사람으로 비유해 보인 것이다.
6. <만물>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극치의 여자’로 비유한다.
7. <본체>는 ‘비유’로 나타낸다.
8. <본체>를 나타내지 못하니, ‘사람’을 들어 비유하여 “이와 같이 그 만물도 극치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고 깨닫게 한다.
9. <비유>는 ‘두 가지’로 보인다. <사람>을 ‘만물’로 비유하여 보이고, <만물>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보인다.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주체가 사람이면 만물로 비유하여 보이고, 주체가 만물이면 사람으로 비유하여 그 특성을 보인다.
10.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신비한 것>은 ‘신비한 것’으로, <웅장한 것>은 ‘웅장한 것’으로 보인다.
11.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면, ‘좋아하는 사람’으로 계시하여 보인다.
12. <비유한 것>의 특성이 ‘본체’에 존재한다.
13. <본체>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데, 본체로는 못 나타내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극치의 사람’으로 비유하여 보인다.
14. 한번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사람’을 보여서 그저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후 그 사람이 지나간 곳에서 작업하다가 흙에 묻힌 바위를 발견했다. 그 바위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했다. 평소 때는 보통으로 보던 바위였는데, 그 후로 하나하나 뜯어보니 ‘사람 형상’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부분이 있었다. 그전에는 그리 안 보았는데, 사람을 비유로 깨닫게 해 주신 것이다.<본체>가 바위이니, 그전에는 ‘바위’로만 봤다. 바위로만 보니, 하나님의 작품을 깊이 못 봤다. 그러니 그 바위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사람’으로 보이시며 ‘바위의 형상’을 깨닫게 하셨다. 비유로 보이신 것을 깨달으니 그제야 딱딱한 바윗덩이가 ‘여자의 몸’같이 부드럽게 보였다. <본체>로는 못 깨달으니, 비유로 ‘사람’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우쳐 주시는 것이다. <최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존재>가 ‘사람’이다. 고로 <최고 극치의 것>은 ‘사람’으로 비유하신다. <월명동 지형>도 ‘6명의 여자 형상’으로 되어 있다.
15. <만물>이 꼭 사람같이 좌우의 손과 발이 없어도 만물 자체로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니, “사람의 몸 같다.” 함이다.
16. <비유>를 제대로 풀면, 아름다움과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감탄하며 기뻐한다.
17. 꼭 사람 지체의 형상과 똑같지 않아도, 만물로서 ‘사람 지체의 형상’을 가졌으면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다.
18. <만물>을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그 만물이 ‘극치의 것’이어야만 그리 비유한다.

19. 성자는 더 이상 없는 극치의 작품이나 사람을 ‘휴거’로 표현하셨다. <휴거>는 ‘최고로 높고 깊은 완전한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다. 고로 만물 중에 최고의 소나무, 최고의 돌, 천연기념물 정도 되는 것은 ‘휴거’로 표현한다.

20. <최고의 것>은 ‘최고의 것’으로 비유한다.

21. <비유>로 보이면, ‘비유로 보인 것’과 ‘본 형상’을 두고 많이 연구해야 된다.

22. <메시아>는 수백 가지로 비유한다. 그만큼 행하여 다양한 것을 품고 있다는 뜻이다.

23. <한 만물>을 ‘사람’으로 비유하여 보이시어, 사람과 본 형상을 두고 3년 동안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을 깨달았다. 100가지를 깨달았다. 나머지도 깨닫고 확실히 알려면 더 연구해야 된다고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연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나타나시니, 비유 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이다.

24. 잠언을 쓰다가 실수로 표현을 잘못해서 썼다. 내가 실수했다고 말함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같이 섭리인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실수한다 함을 말하는 것이다.

25. 확인 안 하면, 실수투성이다.

26. 확인 안 하면, 실수한 것도 모르고 그냥 간다.

27. 어떤 자는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다. 이때는 한 여름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차 문을 잠그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뭔가 허전했다. 알고 보니, 아이를 차에 두고 온 것이었다. 차에서 소리 지르고 뛰어놀 때는 알았는데, 아이가 자니 아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28. <빌려 줄 때>는 보이니, ‘빌려 준 것’을 기억한다. 그 후에 잊으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눈에 보여야 그때서야 안 다.

29.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씩 실수함을 알아라. ‘뇌 실수’를 많이 한다. 실수가 습관이 되면, 큰 사고로 연결된다. 생각에서 잊고 실수하면, 치명적인 해가 닥치게 된다.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70년 동안 ‘악’은 무너지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성자가 땅에 오시고 70년 만에 ‘휴거’를 이뤘다.

2. (성자) <환경>이 좋아도 ‘사람’이 안 좋으면 못 산다. (중국 안산)

3. 축소해서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고 예쁘고 맛있는 사람이라도 그 속이 나쁘면 같이 못 산다. 고로 이혼한다.

4. 환경도 좋게 만들고, 자기도 좋게 만들어라.

5. <아름답고 신비한 것>을 보아도, 온전히 아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무엇이 아름답고 신비한지’를 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신비한 것을 봐도 무엇이 아름답고 신비한지 잘 모른다.

6.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같이 꿈을 꾸게 한 것이다.

7. <자기 꿈>에 타인이 나오면, 꿈에 보인 현상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보며 오해한다.

8.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다.

9. <자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배경이 보인 것이다.

10. <자기 꿈에 타인이 보인 것>은 그 사람이 계시에 합당해서 보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의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 쓴 것이다.

11. 자기를 깨우쳐 주려고 보이는 것인데, '실체 타인의 혼이나 영'이 그때마다 거기에 오겠느냐. 해당이 안 되니, 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12. <자기 꿈에 보이는 타인의 혼이나 영>은 '가상으로 보인 것'이다. 실제로 상대의 혼이나 영이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이 아니라 그 혼이나 영을 가상으로 보인 것이다.

13. <꿈의 배경>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에 맞게 만든다. 혹은 <실제 영의 세계>가 '배경'으로 보일 때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보인다.

14. <글자를 쓸 때>도 수만 자 중에 '해당되는 글자'를 골라서 써 보이듯, <꿈>도 수만 가지의 배경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보인다.

15. <자기 위치나 자기 집>도 '자기 행위'에 따라 달리 꾸며서 영적으로 보인다.

16. <일반 꿈>은 '일반적'으로 꾸며 보이고, <깊은 것>은 '현실'을 보이면서 계시하기도 한다.

17. 자기가 꾸는 꿈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실체 혼들'을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혼들도 다 자기 삶이 있고, 자기 일이 있다.

18. <꿈>은 '자기'에게 해당되게 꾸며 보인다.

19.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의 세계'가 있다.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듯 같이 모여 살며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 이는 사람들의 실체 혼과 영들이다. 이같이 실제로 그 사람의 혼과 영을 보이는 것이 있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교훈적인 꿈들은 그 배경을 꾸며서 합당하게 보인다.

20. 저마다 '자기가 깨달아야 할 것'을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1. 자기 인식대로 보인다. 그래야 깨달기 때문이다.

22. 어떤 자의 꿈에는 사람이 '돌'이나 '나무', 혹은 '물고기', 혹은 '보화'로 보이기도 한다.

23. 자기 현실과 비교하여 연결해서 풀어라.

24. <설교할 때>도 해당되는 것들은 화면으로 만들어서 '설교의 배경'으로 쓴다. 이같이 <꿈>에도 해당되는 만물이나 사람을 '꿈의 배경'으로 쓴다. 실제 그 사람이 해당되면 혼이나 영이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 보인 것이니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25. 꿈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꿈에서 깨고 현실과 연결해 보니, '전도할 자'였다. 그러다 얼마 후에 큰 소나무를 찾아서 사 오게 됐다. 나무를 좋아하고 사랑하니, 그 소나무를 마치 한 여자를 사랑한 것으로 꾸며 보이기도 한 것이다. <꿈>은 이같이 '상징'해서 꾸며 보인다. 자기가 사랑하면, 사람뿐 아니라 물건이나 만물도 '사랑의 대상'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고 우상과 사랑한다고 표현하셨다.

26. <잠>을 사랑하거나, 혹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자면, <잠>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보인다.
27.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것과 연혼함을 보인다.
28. <꿈>은 수만 가지로 보이니, '꿈의 핵, 골격'을 알아야 푼다.
29. 자기 생각과 행위의 차원이 낮으면, 이를 깨우쳐 주기 위해 '자기가 초가집에 거하는 것'을 보여 준다.
30.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육신의 행위에 따라 금방 자기가 '대궐 같은 집에 다니는 것'이 보인다. 순간 영적으로 그 현상이 보인다.
31. <육계의 현상>과 <영계의 현상>은 다르다. 육은 땅에서 사니, '육신에 해당되는 환경과 처지'에 맞게 육계의 현상을 '혼'으로 꾸며 보인다. 고로 '영계의 현상'과 다르다.
32. <자기 육의 실상>을 두고 그 현상을 '혼'으로 보여 게시한 것인데, '자기 영의 위치'가 그런지 안다. <영>은 휴거되어 그 삶이 다르다.
33. <은밀한 것>은 '꿈'으로 게시해 주신다.
34. <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꿈'으로 그 실상을 보여 주신다.
35. 사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적응하여 거기에 해당되는 말도 하고 행위도 하며 산다. 그 환경에서만 그러하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다르다. 예전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 그 환경에 해당되는 말도 하고 행위도 한다.
36. 자기가 처한 대로 약속도 하고, 다짐도 한다.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면, 그 후에는 예전에 있던 환경에서 약속하고 다짐했던 것은 거의 안 한다.
37. <아쉬운 환경>에서는 '아쉬운 말'을 하다가도, 거기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다스리는 말'을 한다.
38. 어떤 일을 두고 육계에서 아쉽게 행하면, 영계에서도 아쉽게 행하는 것을 보여 준다.
39. <육계에 해당되는 것>을 확실하게 행하면, '혼계에 해당되는 것'도 확실하고 속 시원하게 행하는 것을 보여 준다.
4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모두 '자기 주관으로 행하는 시간이나 일'로 보고 '사탄 주관권에 속한 시간이나 일'로 보아라.
41. <자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끼들어서 못 하게 하고 방해할 때는 꿈에 '사탄을 상징하는 자들'로 보인다.
42. 제대로 행해야, 꿈에서도 제대로 된다.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안 될 것>도 '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2.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지혜'다.

3.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비법이다.
4.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5. <안 될 때>는 ‘여러 번 해 보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는 것 중의 하나다.
6. 한 방향으로 안 되면 ‘360도’ 돌려 가면서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위아래 방향’으로 해 보면 된다.
7. <정신 차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는 비법’이요, ‘지혜’다.
8. <실전>은 ‘완벽한 연습’을 해 놓고 하는 것이다.
9. <실전>과 <연습>은 같은 것이다.
10. <평소에 하던 일>은 ‘실전’ 때도 해진다.
11. <한 자, 한 자 극적으로 쓴 글자>를 모두 종합시키면 ‘극적인 글’이 되듯이, <생활>도 갖가지를 극적으로 행하면 생활을 종합적으로 잘하게 되는 것이다.
12. 볼 때 눈으로 제대로 보고, 생각을 깊이 해야 그 형상이 떠오른다.
13. <생각하여 형상을 떠올릴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존재물의 형상이 마치 ‘사진’같이 떠올라야 된다.
14. <형상의 이미지>가 기억나야 된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과 몸’이 닿아 느끼려면, 가까이 일체 되어 행하여라.
16. <눈>은 떠야 보인다. 눈을 감거나 다른 데를 보면, 상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도 못 본다. 고로 생각의 눈을 뜨고, 삼위와 이야기하며 통하여라.
17. <귀>도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말해도 안 들린다.
18. 기도하고 생각을 집중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통하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혼과 영과도 통하게 된다. 기도하고 생각을 집중하면, 확실하게 통해진다.
19. 사람끼리는 직접 ‘육’으로 통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화’나 ‘편지’를 전해서 통한다. 이것도 없으면, ‘생각’으로 통한다. 서로 약속하고 하면, 생각으로 통하게 된다.
20. 몸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생각하면 영적인 단계까지 가서 통하고, 생각이 일체 되면 서로 몸이 닿는 것같이 느낀다.
21. 서로 생각하면, 꿈에서 육을 대신하여 혼끼리 만나고 사랑도 한다.
22. <꿈>에도 ‘생각하는 쪽’만 상대의 혼을 만나게 된다. 고로 육도 꿈을 통해 만난 것을 안다.
23. <생각을 안 하는 쪽>은 자기 혼이 꿈에서 상대를 만나도 모른다. 고로 그 육도 꿈을 통해 만난 것을 모른다.
24. <행하는 쪽>만 ‘꿈’에서도 만나고, 생시에 ‘생각’으로도 만나고 행한다.

25. 자기가 생각해야 ‘꿈’에서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 ‘육’도 꿈을 통해 만난 것을 알게 된다.
26. <자기 몸과 생각과 혼과 영>을 가지고 ‘스마트폰’같이 쓰며 얼마든지 통할 수 있다. 또한 <혼과 영>은 스마트폰과 비교도 안 되게 ‘각종 영의 세계와 천국’에도 가서 보고 올 수 있다.
27. <신령한 세계>에 가면, 정말 신기하고 별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된다.
28. 인생들, 몰라서 못 살고, 알아도 행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고 고생하며 산다.
29. <자기 생각>이라는 ‘무지’가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다.
30. 알면 그 날 얻는 것도 있는데, 모르니 일생을 가도 못 얻고 고생하며 살아간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일체 되면, 합당한 것은 구하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
32. 스마트폰을 안 쓰고도 ‘기도와 말씀과 수만 통의 편지’로 10년 동안 세계 27개국의 군중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전도도 했다.
33. 스마트폰을 안 쓰고도, 스마트폰보다 수십억 배 이상 더 발달된 ‘뇌의 생각과 혼과 영’으로 행했다.
34. <소경들>은 눈을 못 쓰니, ‘온몸의 신경’을 발달시켜서 쓴다.
35. <생각과 행실>을 ‘육적’으로만 쓰면, 그 생각과 혼과 영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36. <육>을 안 쓰고 ‘생각과 혼과 영’을 발달시켜서 쓰면, 육신보다 백만 배도 더 쓰고 얻게 된다.
37. <육>으로 20년 동안 못 찾았던 것을 ‘혼’으로 순간 찾았다. 이같이 혼과 영은 육과는 비교가 안 된다.
38. <육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혼과 영’으로는 금방 하게 된다.
39. <천국>도 육으로는 못 간다. 그러나 ‘영’으로 가면 순간 간다.
40. <육>이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일생 동안 갈 곳도 ‘혼’이나 ‘영’으로 가면, 1분에 간다. 그러니 혼과 영을 발달시켜서 문제도 해결하고, 얻을 것을 얻어라.
41. 자기가 ‘육의 힘’으로만 얻으려면, 아예 생각도 못 한다.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혼과 영’으로 행하면 얻는다. 이미 그동안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다. 월명동도,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그동안 얻은 수백, 수천 가지들을 쪼개서 보면 다 그러하다. 지금 모두 사용하고 있다.
42. <틀린 글씨>를 안 고치면 그 글로는 안 통하듯,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고칠 것을 안 고치면 안 통하는 법이다.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죄>는 ‘죽음’이다.
2. <죄>를 모르면,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다.
3. <죄>는 ‘죽음의 병’과 같다.

4. <병>을 알아야, ‘병’으로 안 죽는다.
5.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6. 하나님이 죄에 대해 가장 많이 아신다. 고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어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용서도 해 주시고, 죄에서 이끌어 내신다.
7. <죄>에서 이끌어 내기만 한다고 구원이 아니다.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의의 삶’을 살고, 육도 영도 희망을 이루고, 육신은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그 영도 육의 행위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서 삼위를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
8.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라. 하나님은 ‘주’를 통해 용서해 주신다.
9. <사탄>은 ‘죄’를 지어서 ‘사탄’이 되었다. 고로 죄를 지으면, 사탄은 자기와 같은 취급을 한다.
10. <사탄>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해서 사탄이 되었다.
11. <사람>도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사탄 주관권’에서 살면서 사탄의 주관을 받고,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
12.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받는다. <형벌 기간>이 끝나면 거기서 나오게 된다.
13.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죄’를 짓고 이집트로 가서 400년 동안 살았다. <민족의 형벌 기간>이 끝나고 거기서 나오게 되었다.
14. <죄의 형벌>을 받고 ‘짓값’을 치르고 나왔다.
15. <죄>를 지으면,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다. <죄의 형벌>을 받고 나왔으면,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 죄를 지으면,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
16. 예수님 때 구시대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그들의 각종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고로 예수님이 대신 그 짓값을 받았다. 십자가 죽음이었다. 메시아가 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았다. 이같이 <죄>는 ‘죄를 지은 만큼 형벌’을 받아야 끝난다.
17. <죄>를 용서받고 지은 죄만큼 형벌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대신 그 짓값을 받아 줘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안 믿고 불신했다. 고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짓값을 ‘전쟁’으로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다.
18. <죄>를 비유하면, ‘한쪽이 썩은 과일’과 같다. 과일의 한쪽이 썩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잘라 내야 나머지 부분이 안 썩는다. 썩은 부분을 치료해서 나머지도 안 썩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과일>이 썩었으면 잘라 내야 되듯이 <죄>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로 잘라 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 ‘죄를 지으려는 마음과 행위’를 계속 잘라 내야 한다.
19. <하나님의 생각>을 떠나서 하면, ‘죄’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면, ‘죄’다.
20.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죄가 아니다.
21.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음>이 ‘죄’다.

22.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죄’다.

23. 하나님은 ‘하나님을 벗어나 행하는 것’을 모두 ‘죄’로 보신다.

24.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그 법대로 행하면 죄가 아니다.

25. <공무원 법>이 있고, <일반 법>이 있다. 고로 <공무원>은 ‘공무원 법’에 해당되고, <공무원이 아닌 자들>은 ‘공무원 법’에 해당이 안 된다. <결혼하기 전>에는 해당되고 <결혼한 후>에는 해당 안 되는 법이 있고, <일반 사람>은 해당되고 <건물 주인>은 해당 안 되는 법이 있고, <백성>은 해당되고 <왕>은 해당 안 되는 법이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해당되고 <메시아>는 차원과 위치가 다르니 해당 안 되는 법이 있듯이, 이같이 <죄>도 하나하나 위치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해당되는 것이 다르다.

26. <구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법’대로 안 하면 죄가 되고, <신약>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준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옛 시대 구약을 떠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구약의 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다.

27. <결혼하기 전에 해당되는 법>은 결혼하면 폐지가 된다.

28. <하나님의 시대 법>도 새 시대가 오면 ‘구시대 법’은 폐한 바가 되어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시대 법’이 해당이 안 된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새 법’을 주신다.

29. <새 시대>에서 살아도 ‘옛 시대 법’대로 믿고 따르고 살면, 하나님은 그를 ‘구시대 사람’으로 취급하신다.

30. 그 시대는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31. 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와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고 역사하시는데도 이를 안 믿고 안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고, ‘새 시대 구원’도 못 이룬다.

32. <새 시대>는 마치 옛집에서 벗어나 새집을 짓고 사는 격과 같아서 매였던 구시대 역사에서 벗어나 차원 높여 새 시대 새 역사를 펴신다. 고로 하나님도 차원을 높여 대해주신다. <구시대 구약>이 ‘종급 차원’이었다면, <새 시대 신약>에서는 ‘자녀급’으로 거듭난 차원으로 대하시고, <구시대 신약>이 ‘자녀급 차원’이었다면, <새 시대 성약>에서는 ‘신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신다. 그러면서 그 차원에 해당되는 것을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신다. <법>도 ‘구시대 법’의 제재를 안 받고, ‘새 시대 신부 법’만 지키면 된다.

33. <육>이 ‘구시대’에서 살면, 그 영도 ‘구시대 영계’로 가야 된다. <육>이 ‘새 시대 성약역사’에서 살면, 그 영도 ‘새 시대 신부 영계’로 가게 된다. <구약 영계>, <신약 영계>, <성약 신부 영계>는 완전히 다르다. 땅에서 각 교파가 다르듯 다르다. <구약 종교인들>, <신약 종교인들>, <성약 신부시대 종교인들>이 완전히 다르듯 다르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고, 마음도 생각도 다르다. <영>도 그에 해당되는 형체로 형성된다. <이단들의 영계>도 다르다. 그 말이 맞지 않으니 ‘비진리의 세계’로 가 있다. 그들의 말이 틀린 줄도 모르고 기약 없이 계속 믿고 산다.

34. <진리>는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비진리>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막연히 기다리고 산다.

35. <진리>를 모르니, ‘비진리’를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 기다리는 메시아를 못 맞는다.

36. <비진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죽은 시체’와 같다.

37.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비진리’로 성경을 풀고 믿으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38.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하였다. 이 말은 ‘메시아가 진리이니, 그를 알면 그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준다.’는 말이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진리에 굶주리지 않고 멸망치 않으리라.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아무리 생시에서나 꿈에서 귀한 것을 확실히 보고 듣고 했어도, 시간이 흐르면 뇌에서 잊는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어도, 잊으면 보았으나 들었으나 소용이 없다.
3. 안 잊고 행해야 얻고 누리고 산다.
4. <안 잊는 방법>은 ‘행해 버리는 것’이다. ‘기록해 놓고 항상 보는 것’이다. ‘교육을 수시로 시켜 주는 것’이다.
5. 잊으면, 그 사랑이 죽은 것이다.
6. 잊으면, 처음 사랑이 식는다.
7. 잊으면, 그것에 죽은 자가 된다.
8. 잊으면, 무(無)로 다시 돌아간다.
9. 잊으면, 홀로 된다.
10. 잊으면, 축복이 사라진다.
11. 잊으면, 끝난다.
12. 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역사를 못 하신다.
13. 잊으면, 헛수고다.
14. 잊으면, 인생 맛을 잃고 살게 된다.
15. 잊으면, 기쁨도 희망도 사라진다.
16. 잊으면, 성령이 떠나간다.
17. 잊으면, 안 간다.
18. 잊지 않게 ‘생각’에 넣고 다니면서 쓰고 수시로 보아라.
19. 잊지 않게 수시로 ‘대화’하여라.
20. 잊지 않게 ‘노래’로 만들어서 수시로 불러라.
21. 잊으면, 다음 것도 하지 못한다.
22. 잊으니, 죽는다.

23. 잊으니, 그 생명이 다른 데로 간다.
24. <안 잊고 행하는 것>이 '복'이다.
25. 할 일을 잊지 않고 하도록 새벽을 일찍 깨워 행하여라.
26. <사망권에 있는 자>는 보고 들어도 자꾸 잊는다.
27. <악과 불의에 속한 것>은 잊고, <선과 의에 속한 것>은 잊지 말아라.
28.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말씀을 잊고 혼에게 계시한 것을 잊으면, 자기중심으로 하니 그 일이 안 되고 늦어진다. 고로 했어도 육적인 것이다.
29. 안 잊고 해야 '빛'을 잡듯 해진다.
30. <잊은 것>은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여 행하여라.
31. 이미 다 보여 주고 계시했다. 잊어서 모른다.
32. 잊기 전에 해야 '영적'으로 하니 빠르다.
33. 말한 것을 안 하면, 성령은 떠나가신다. 조건을 세우고 할 때 다시 오신다.
34. 물가에 아기를 두고 빨래를 하는데 '생각'에서 아기를 잊으면, 아기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어도 모른다. 잊으면, 만사가 이리된다.
35. 성령과 주와 일체 되면, '신의 생각'으로 행하니 안 잊는다.
36. <지난날 말씀한 것>을 잊지 말고 현실에서 매일 써라.
37. 잊으면, '그 일에 잠을 자는 자'다. 생각날 때까지 '죽어 있는 상태'다.
38. 매일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성경같이 보면서 행하면, 그것이 '성령과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39. 집회를 해도 그때만 뜨겁다. 삶으로 돌아가면 잊으니, 식는다.
40. <안 잊고 매일 행하는 자>는 1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그 위에 또 성령과 은혜를 받으니 더 뜨겁다.
41. <잊은 자>는 힘도,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
42. <주를 잊은 자>는 '주와 반대쪽'에서 산다.
43. <기성>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서 '새 역사'가 왔어도 모르는 것이다.
44. <주가 하신 말씀을 잊은 자>는 '신앙'이 죽어서 그 육체만 교회를 다닌다.
45. <주>를 잊으면, 이 시대 기쁨도 희망도 사라져 버린다.

4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주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신’이다.
47. <기성>은 듣지도 보지도 못해서 신앙이 죽어 살고, <섭리사>는 듣고 보았는데도 잊어서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 다시 ‘생각’하면, 잠에서 깨어나듯 한다.
48.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 중의 하나는 ‘잊은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이다.
49. 생각날 때 즉시 기록하고, 행하고, 말하기다.
50. <생명 관리>도 하다가 안 하면, 그 생명을 잃는다.
51. 어떤 자는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늘 기뻐하며 희망에 차서 살았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 거기에만 집착하고, 자기가 찾은 보화를 생각에서 잊었다.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과 씨름만 하며 산다. 신앙인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다.
52. <환난, 시험, 어려움>으로 주를 잃고, 휴거를 잃고, 축복해 준 것을 잃는다.
53. <축복해 준 것>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54. 매일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대화다.
55. <부분적인 답>은 쉽게 생각하고 얻지만, <완전한 답>은 얻기 어렵다.
56. <꿈>이 생시와 연결되지 않고 생시와 상관없이 꿈에만 해당되는 것이 있다.
57. <꿈에서 끝나는 꿈>이 있다.
58. <꿈에서 계시하고, 생시에 이루어지는 꿈>이 있다.
59. <생시에 이루어진 것>이 꿈으로 보일 때도 있다.
60. 꿈에서나 생시에서나 확실하게 받으려면, 100% 확실하게 행하여라.
61. <꿈>은 ‘육신의 여건’을 꾸며서 그러함을 보이는 것이 대다수다.
62. 가령 생시에 자기가 한 생명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정신적 사랑으로 대해 줬으면, 이것이 꿈에는 다른 자와 사랑 관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가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듯 그 생명을 사랑해 줬다는 것을 영적으로 재연해 주는 계시다.
63. 한 사람을 전도하고 진정 사랑해 주면서 구원시켜 주면, 그것도 꿈에 남녀가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는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구원시켰다는 것을 그같이 꾸며서 계시해 보인 것이다.
64. 어느 때는 나무를 애인같이 사랑해서 퇴비해 주고 키우니, 꿈에 ‘사람’으로 상징해 보이며 그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65.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도 좋아하고 사랑하면, 꿈에 말씀이 ‘사랑의 대상’으로 나타나 그와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도 한다.

66. 생시에 열렬히 삼위를 사랑하고 애인같이 대하고 살면, 꿈에 '사랑의 대상'과 1:1로 만나 사랑하는 것을 보인다. 이 역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함이다.

67. 세상을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하면, 꿈에 사탄이 그 대상을 쓰고 나타나 사랑하는 것을 보인다. 이는 육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이성과 이같이 연혼했다 함을 깨달으라고 계시하여 보여 준 것이다.

68. 타락하면, 자기 주권을 잃고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산다.

69. 끝난 데서는 더 이상 없는 것이다. 또 얻으려면 새로 찾고 얻어야 된다.

70. 자기 기대, 상대 기대, 주 기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기대다. 기대한 만큼 자기 책임을 행하기다.

71.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못 한 것>이 '죄'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이 '실패'다.

72. 성공할 것도, 승리할 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73. 한 번 잡은 것을 놓으면, 놓친다.

74. 한 번 생각한 것을 잊으면, 놓친다.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를 못 한 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2. <청소>도 '한 군데 못 한 것'이 전체에 영향을 준다.

3. <하나>가 빠지니, '전체 100%'가 안 된다. 고로 100% 온전하게 하여라.

4. <양 한 마리>를 잃으니,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99마리는 들판에 서서 고생한다. 고로 모두 잃지 않게 하여라.

5. 생명 하나를 잃으면 구원자는 그 생명을 찾으려 다녀야 하니, 그 생명을 찾을 때까지 전체가 기다리며 일을 못 하게 된다. 고로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

6. <공사>도 다 잘하고서 한 군데를 안 하면, 그것이 연결되어 공사를 잘한 곳까지 문제가 생긴다. 고로 전체를 제대로 못 쓴다. <질서>도 그러하고, <생명을 이끄는 것>도 그러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러하다.

7. <건강>도 다른 곳은 다 건강해도 한 군데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전체를 제대로 못 쓴다. <만사의 일>도 이와 같으니, 모두 100% 제대로 하여라.

8. <한 권의 책>에서 '한 장의 원고'가 빠지니, 전체 내용 전달이 안 되었다. 이같이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준다.

9. <성경>도 한 군데만 잘못 풀면, 잘 풀 것에까지 영향을 준다.

10. <역사의 주인>이 아니니, 거의 성경을 제대로 못 풀고 스스로 역사를 편다고 한다. 재림, 휴거, 부활, 심판 등 100% 제대로 풀 자가 주인이다. 고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펴신다.

11. <성경을 제대로 못 풀 자들>은 마치 '불구'가 된 것과 같아서 하나님은 '역사의 불구'가 된 자들을 통해서는 아예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통해 '온전한 새 역사'를 펴신다.

12. 한 글자에 받침 하나만 틀려도 그 글자는 읽지를 못하니 쓰일 수가 없다. <역사의 주인>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제대로 된 자’를 통해 행하신다.

13. <성경>을 제대로 못 풀면, 성경을 이루지 못한다.

14.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다 들어 있다. <새 역사>는 구 역사에서 못 푼 것을 다 풀고, 그것을 행한다. <온전히 아는 자>를 통해 ‘온전한 역사’를 펴 가신다.

15. <모르는 자>는 그 주관권에서 살다 죽는다.

16. 매일 ‘주’께 배워라.

17. <구시대>는 ‘구시대’만 배운다.

18. <모르는 자>에게 배우면, 모르는 대로만 배운다.

19. 모르는 대로 배워도, 모른 채 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열매 없는 과정 신앙’만 하다 끝난다.

20. <구시대 기성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그리 기다리고 했어도, 모르니 ‘과정 신앙’만 했다. 그들이 주를 맞았느냐. 열매 없는 나무만 기르고 끝난 것이다. 그 후손들에게 “너희 시대에 열매가 열린다.” 하니, 후손들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연다고 하며 계속 가꾸고 키우며 기다린다. 그러나 나무가 거목이 되고, 때가 지났어도 열매가 열지를 않는다. 그러니 “좀 더 나무가 커야 열매가 열려나?” 하며 아직도 기다리고, 그중에 더러는 실망하고 떠나갔다.<재림과 휴거의 열매>는 그 나무에서는 안 열린다. 고로 그 수고가 헛되다. <100%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어야 ‘말씀의 열매, 재림과 휴거의 열매’를 맺는다.

<2017년 11월 2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중에 ‘안 해도 되는 일’은 없다.

2. <말을 해야 될 것>은 ‘말’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것>은 ‘일’을 해야 된다.

3.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은 ‘생각’으로 해야 된다.

4.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야 될 일>은 시켜야 일이 된다.

5. <걸어가야 될 사람>이 제때 ‘차’를 타면, 안 걸어도 가진다.

6. <시대를 탄 자>는 ‘시대’가 가니, 안 해도 가진다.

7. <씨>를 뿌렸으면 계절이 가면서 ‘자연’이 해 준다.

8. <지구>에 올라탔으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며 할 일을 하니, 가만히 있어도 계절이 오고 가며 ‘지구’가 해 준다.

9. <기계>를 자동으로 해 놓으면, 안 해도 기계가 해 놓는다.

10. 하나님께 간구해 놓고 약속을 받았으면,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해 주신다.

11. 차에 올라타는 것만 해 놓으면, 자신이 안 걸어가도 가만히 있어도 수십 리, 수백 리 편하게 가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올라타면, 편하게 해진다.

12. 지구에 올라탔으면, 차에 탄 자와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가는 것이다. 가령 지구에 안 올라타고 공중에 있었으면, 걸어가는 자와 같아서 수십 배, 수백 배는 힘들었을 것이다. <차>에 타고, <지구>에 올라탔어도, ‘자기가 할 일’은 해야 편하다.

13. 아예 지구에서 태어나서 지구에 올라타서 사니, 편하다. 한 발자국도 안 걸어도 차가 싣고 가듯 지구가 싣고 간다. 지구가 해 주듯 이같이 하나님도 모든 인생들에게 해 주신다. 나머지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14. 가령 <씨>를 땅에 안 뿌리고 키우려면, 자기가 ‘자연’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고로 힘들다. <씨>를 제때 땅에 뿌려놓으면, ‘자연’이 해 주니 편하다. 다만 잡초를 뽑고, 퇴비를 주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가 몇 가지만 할 일을 하면, 열매를 얻어 거둔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해 주신다. 자기가 할 일은 얼마 없다.

15. 인간은 편하게 살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 왔다. 그로 인해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옛날에는 인간이 80% 정도 해야 되는 것을 지금은 20% 정도만 해도 나머지는 기계가 해 주니 편하다.

16. 연구하고 노력하면, 노동을 안 해도 기계가 해 준다.

17. 옛날에는 비가 안 와서 가물면, 위의 논에 물을 짚어지고 가서 넣어 주거나 아래 논의 물을 품어서 넣어 주었다. 종일 하거나 3시간, 혹은 4시간씩 해야 됐다. 지금은 기계가 해 준다. 다만 기계를 만들거나, 기계를 돈 주고 사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의 삶’을 살 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함께 살 때도,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도 편하게 살려면, 노력하고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듯 ‘전능하신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야 된다.

18. <하나님의 새 역사>에 올라타면, ‘옛것’은 안 해도 된다.

19.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때는 소나 양을 잡으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니 힘들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새롭게 신약 역사를 시작하셨다. 고로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신약 역사에 올라탄 자들’은 구약 때와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중심하여 행하며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제사법을 폐하니, 옛것을 안 하고 ‘새 법에 따라 새 식’으로만 했다. 고로 그리 편했다. <새 시대 신약 법>대로 하니, 모든 제도가 다 편했다. <구약> 때는 각종 예식들이 너무 많았다. 각종 예식을 해야,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신약> 때는 ‘자녀’가 되었으니, 구약에서 ‘종’이 하듯 하던 것을 다 안 하고 ‘자녀가 해야 될 것’만 했다. 그러니 모두 편하게 되었다.

20. <신약> 때 ‘자녀로서 해야 될 일’도 <새 역사, 신부 역사>를 맞았으면 안 하고 ‘신부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된다. <신부가 할 일>은 ‘사랑해 주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옷을 관리해 주는 일, 신랑과 놀러 다니는 일’ 등이다. 이런 일들은 신부가 됐어도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땅의 신부들과 기뻐하며 같이 살아 주신다.

21. <종>에 비하면 ‘자녀’는 할 일이 적고, 정말 쉽다. <자녀>에 비해 ‘신부’는 할 일이 정말 적고, 편하다. <옛것>은 모두 죽은 자를 장사 지내듯 하였기에 정말 편하다. <신부가 할 일>은 신랑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은 대로 부지런히 행하고, 신랑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같이 <성약의 때에 올라탄 자>는 ‘신약’ 때보다 편하다.

22.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말 피곤한데,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으니 모두 해야만 된다.’ 하고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신부가 되어 과거에 했던 옛것들을 안 하니 얼마나 편하냐. ‘신부로서 할 일을 하는 삶’과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아라. 과거에는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셨다. <신부가 되기 전, 옛 시대>를 생각해 보니, 정말 땅과 하늘의 차이같이 해야 될 일도, 얻는 것도 차이가 있었다. <하나님 시대의 때>를 타고 가면 옛 방식으로 안 하니, 10배, 100배 더 편하다.

23. 모르면, ‘편한 삶’을 살아도 모른다.

24. <신부>가 말하길, 결혼하니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해야 되고 빨래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했다.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길,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을 하며 살았냐고 하니, 신부는 밭도 매고 잡초도 뽑으며 각종 일을 했다고 했다. 이에 신랑은 “생각해 봐. 지금 땀별에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밭매는 일을 한 번이라도 하느냐? 음식을 맛있게 해서 남도 안 주고 둘이 맛있게 먹고 즐기면서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 과거에 이같이 놀고 먹고 즐기면서 살았었느냐?” 했다. 신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신랑은 신부에게 말하길, “지금은 매일 이 같은 삶을 사니, 정말 좋은 때다.” 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사랑>도 ‘일’이다. 안 하면, 사랑을 못 느끼고, 못 받는 것이다.

25. <새 역사 하나님의 때>에 올라타야 쉽다.<기도>도 ‘새벽의 제시간’에 올라타야 쉽다. 못 올라타면, 목적지까지 걸어가듯 해야 하니 힘들다.

26. 이 말씀을 쓰는 날 새벽에도 ‘제시간의 때’에 올라타니,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해 주시어 ‘육과 혼과 영을 위한 영의 밥’을 쉽게 짓게 되었다. 만일 ‘제시간의 때’를 못 탔으면, 걸어서 힘들게 가듯 종일 잠언을 받아야 된다.

27. <구시대>는 ‘새 시대’가 왔어도 ‘하나님의 때’에 못 올라타서 옛 방식으로만 산다. 고로 새 시대도 못 맞고, 휴거도 안 되고, 신부도 안 되고, ‘사랑의 역사’를 희망으로 기다리기만 하며 청춘이 늙어 간다. 신부 될 자들이 신랑을 못 만나니, 마치 ‘굼벵이’가 되어 살아가듯 기어 다닌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 신부가 된 자들>은 ‘나비’같이 날아다닌다.

28. <나비>가 됐어도 ‘날개를 치는 수고’를 해야 되듯, <신부>가 됐어도 ‘신랑을 사랑하는 수고’를 해야 자기도 그 사랑을 받는다. <삼위의 사랑>은 오직 신부만 ‘신부 사랑’으로 받는다.

29. <과거 신앙을 하던 자들과 인생들>을 보아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하며 살았느냐. 희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 없이 살았다.

30. <새 시대>에 왔어도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할 일을 안 하면, 과거와 같다.

31. <구시대>로는 ‘새 시대’를 따라올 수가 없다. 영이 받는 혜택도, 얻는 것도, 편한 것도 모두 비교가 안 된다.

32. <어린 자>라도 ‘새 역사의 때’에 올라탄 자는 신부가 되어 ‘신부의 혜택’을 받고 누린다. 나이가 들었어도 ‘새 역사의 때’에 못 올라탄 자는 걸어가는 격과 같아서 힘들고, 얻을 것도 못 얻는다.

33. 10대라도 신랑을 만났으면 ‘신부’로서 사랑을 누리고, 30대라도 신랑을 못 만났으면 ‘신부 사랑’을 못 누린다. <이 시대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다.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와 주관권’을 정하시고 반드시 그 때에 맞춰 실행하시고 대해 주신다. <구약>에서는 ‘신약 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종 법’으로만 대하신다. <신약>에서는 ‘성약 신부 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신약의 자녀 법’으로만 대하신다. <성약> 때는 법이 다르다. <옛것, 자녀 법>을 폐했으니, 옛 법대로 안 해도 죄가 아니다. 오직 ‘신부 법’만 행하면 된다. <구약> 때는 ‘모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문이 되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죄도 용서받는다. <성약> 때는 ‘하나님이 보낸 시대 구원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죄도 사해 주신다. 이것이 ‘신부 법’이다. <성약> 때는 하나님이 ‘신부 법’으로 처리하신다.

2. <신약> 때가 되어 ‘구약시대 종의 언어’는 다 폐하고, ‘신약시대 자녀, 형제의 언어’로 바뀌었다.

3. <성약>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언어’로 다 바꾸셨다.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휴거시키시고, 사랑으로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다.

4. 같은 사랑의 언어라도, <구약>은 '종급의 사랑'이고 <신약>은 '자녀급의 사랑'이고 <성약>은 '신부급의 사랑'이다. 고로 그 사랑의 내용과 질은 땅과 하늘의 차이같이 다르다.
5. <성약> 때 '자녀급'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로 '신부 차원의 역사'를 하지 않으신다. 오직 '신부급'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도 '신부 차원의 역사'를 해 주신다. <기계>도 새로운 것으로 바뀌면, '과거에 쓰던 기계의 방식'으로는 작동이 안 된다. 밤을 새서 해도 안 되고, 때려 부셔도 안 되는 것이다. <새로 사 온 기계>는 '새 방식'으로 해야 작동된다.
6. <새 시대 말씀>을 배운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된다.
7. <구약의 방식>은 썰매와 삼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과 같고, <신약의 방식>은 '차'에 싣고 다니는 것과 같고, <성약의 방식>은 '비행기'에 싣고 날아다니는 것과 같고, '기계'에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해 주는 것과 같다.
8. <신부>가 '신랑의 뇌'에 입력만 해 놓으면, 신랑이 해 준다.
9. <휴거>도 '신랑이 해 줄 수 있는 선'까지는 해 준다.
10. <남녀의 사랑>도 한쪽이 100%는 못 한다. 양쪽이 서로 사랑해야 100% 사랑이 된다.
11.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만 사랑하면 100%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짝사랑이 되고, 또 가령 하나님이 70% 사랑하고 인간이 10%만 사랑하면 사랑이 80%만 이루어진다. <구원>도, <휴거>도 그러하다.
12. 들에서 사냥을 하면 들짐승을 잡게 되고, 바다에서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잡게 된다. 하는 대로 된다.
13. <새 역사>는 쉽다.
14. <구 역사>는 어렵다.
15. <말을 타고 가는 자>를 '걸는 자'가 따라갈 수 없다.
16. <신부>가 되어 역사를 펴는데, 이단이나 기성과 비교가 되겠느냐.
17. 날아가는데 어찌 땅에서 걸어가는 자가 따라오겠느냐.
18. <날아가는 자>는 산에도 바다에도 제재받지 않고 날아간다. <걸고 뛰어가는 자>는 땅의 제재를 받고 그 길을 다 닦으면서 간다.
19. 걸다가는 인생 다 늙는다.
20. <무지>로 기다리다가는 청춘 다 늙어 간다.
21. <알고 행하며 실천하는 자>만 '새 시대의 것'을 얻고 쓰고 누리며 기뻐한다.
22. <이 시대 새 역사>는 6000년 구원역사 중에 최고로 발달된 역사다. 신부급 이상의 역사는 없다. 다만 '신부급'에서 더 행하고 더 사랑하고 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23. <신부>도 '절대적 신부'가 있고, '시대적 신부'가 있다.

24. <휴거>도 ‘절대적 휴거 주관권’이 있고, ‘시대적 휴거 주관권’이 있다.
25. <메시아가 살아 있는 주관권 세계>가 있고, <그 후 성약 주관권의 세계>가 있다.
26.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살아 있을 때까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고, 그 후 남편이 죽으면 ‘그 주관권의 사랑’만 받게 된다. <주관권>을 떠나면, 그 사랑도 못 받는다. <성약역사>도 그러하다.
27. <살아 있을 때>가 가장 현실적이고, 제일 좋다.
28. <구원자가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를 쓰고 땅에 오셔서 행할 일들을 하시고, 죽은 후에는 한 단계 달리 역사하신다.
29. <당세> 때 가장 최고의 사랑의 역사를 펴신다.
30. <주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마치 <애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와 같다. <주가 있을 때>는 ‘육’이 있으니 이지가직 직접 물어보고 확인도 한다. 없으면, 육 없이 ‘혼과 영’으로 통하니 어렵다. 고로 확인하는 것도 막연하고, 죄를 용서받았는지도 잘 모른다. <주가 있을 때>는 주는 사람이니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한 일을 알고 말해 준다.
31. <선생이 있을 때 물어본 자>는 다 안다. 외국으로 떠났을 때는 물어봐도, 기도해도 스스로 판단도 안 되고 막연하다.
32. <기도>도 실상 ‘육성의 기도로 받은 응답’은 자기 판단이니, 막연하다.
33. <하나님이 자신의 육으로 쓰는 구원자>는 ‘사람’이니, 그에게 물으면 금방 설명해 주신다.
34.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안 하고 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다. <새 역사를 탄 자>는 타기만 하면 가게 되니 얼마나 쉽고 편하냐. <구시대>는 걸으면서 가니 얼마나 힘드냐. 힘들게 걸어가도 ‘구시대 길’을 가니 희망이 없다.
35. <구시대와 이단>은 목숨 걸고 해도 ‘그 주관권의 삶’이다.
36. <새 시대 주관권>에 타면, 지구를 탄 것과 같고 고속 열차를 탄 것과 같아서 힘들게 걸지 않아도 된다.
37. <신부>는 말만 해도 ‘신랑’이 해 주니, 구하면 된다.
38. <섭리사>에서 최고의 권한은 ‘사랑’이다. 삼위와 주를 중심으로 얼마나 사랑했느냐다.
39. <천국의 계급과 직위>는 ‘사랑’에 의해 달라진다.
40. <사랑>으로 ‘위치’도 좌우된다.
41. <사랑>이 가다 변하면, ‘위치’도 자동으로 내려온다.
42. 영계에서 ‘육이 이성으로 타락한 자의 영’을 보니, 타락하기 전에 있던 데서 내려와서 딴 세계에 있었다. 그곳에서 사랑의 조건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43. <영>은 마치 소나무가 자라듯이 ‘육의 행위’에 따라 성장한다.

44. <영>은 사랑의 권세를 ‘빛’과 ‘옷’으로 나타내고, ‘위치’로 나타낸다.
45. <생명을 구원한 권세>도 ‘빛’과 ‘옷’으로 나타내고 다닌다.
46. <자기가 천국에서 타고 다니는 차>도 ‘사랑의 권세와 직위’대로 달랐다.
47. 저마다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자기 혼과 영도 꿈에서 보고, 혹은 생시에서 만물 계시를 통해 보아라.
48. <신부>가 됐으면 ‘사랑’이 열렬해야 많이 얻고, 편하고, 기쁘고, 좋다.
49. <사랑>으로 하면, 쉽다.
50. <영>으로 하면, 쉽다.
51. <말>로 하면, 쉽다.
52. <지름길>로 가면, 쉽다.
53. <새 역사>로 가면, 쉽다.
54. 알면, 쉽다.
55. 삼위와 주와 일체 되면, 쉽다.
56. <방법>을 달리하면, 쉽다.
57. 끝까지 하면, 쉽다.
58. <진리>로 하면, 쉽다.
59. <비진리>는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60. <구시대>에서는 절대 ‘새 시대의 것’을 안 하신다.
61. <순리>로 하면, 쉽다.
62. <안 할 일>은 안 하면, 쉽다.
63. <욕으로 할 일>은 ‘욕’으로 하면, 쉽다.
64. 눈으로 보고 하면, 쉽다.
65. <종>이 하면 안 되나, ‘자녀’가 하면 된다.<자녀>가 하면 안 되나, ‘신부’가 하면 된다.

<2017년 11월 2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계나 영계나 자기를 몰라보는 곳에 가면, 거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뿐이다.
2. 꿈이나 생시나 자기가 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면, 그저 보통 사람 대하듯 대한다.

3. 영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는데, 모두 낮설고 그 많은 자들 중에 한 명도 아는 자가 없었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고, 모두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 행위들을 자세히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직업이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4. 육계나 영계나 자기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서로 모른다. <영의 세계>라고 다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다.
5. <육계>에서 가르치고 서로 알아야 '영계'에서도 서로 알게 된다.
6. <육계>에서 모르는 자는 '영계'에서 봐도 모른다.
7. 세상에서도 한 번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세상 어디를 가도 그 사람에 대해 안다. 모르면, 세상 어디를 가도 모른다.
8. <섭리사에서 근본을 알고 배운 자>는 '영계'에서도 그리 알고 혼도 영도 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만 알면, 혼이나 영도 육이 아는 만큼만 알고 대한다.
9. <육계>에서 삼위와 주를 완벽하게 알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영계'에서도 확실하게 알고 대하며 산다.
10. <사랑>도 육이 대하는 대로 '영계'에서도 대한다.
11. <영계>는 '육계의 생각이나 제도'와는 다른 세계다. 고로 <육>이 어떤 것을 이같이 생각했는데, 영계에서는 아닌 것도 있다.
12. <자기 육의 실상>은 '꿈에 자기 혼이 행하는 것'을 보면, 육도 그 차원임을 알게 된다.
13. <육계>나 <영계>나 '생각 차원, 정신 차원, 마음 차원'이다. 고로 자기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흐리멍덩하면, 자기 혼의 형상도 흐리멍덩하게 보이고, 자기 혼이 하는 행위도 흐리멍덩하고, 혼의 위치도 그에 해당되는 차원에 속해 산다.
14. <생각과 정신>이 완벽할 때 '혼의 형제'도 확실하게 보인다.
15. 정신을 일도(一到) 하고 기도를 깊이 하여 생각이 총명해야 '혼의 세계'에 가도 확실하게 보이고, 꿈을 꾀도 기억이 확실하게 난다.
16. <육계>에서 자기 생각과 정신이 흐리멍덩하면, 영계는 '생각 실상 세계'라 자기 혼도 영도 흐리멍덩하게 보이고 그에 해당되는 차원에서 다닌다.
17. <육계>에서 '생각과 정신'을 총명하게 하고 확실히 행하며 기도를 깊이 하면 꿈에서도 확실하게 보이고, 알던 사람도 새롭게 확실히 알게 되고, 만물도 제대로 보고 깨닫게 된다.
18. <육계>에서 이단의 교리나 그릇된 것을 듣고 행하면, 그 혼도 영도 '비진리'를 듣고 행한 대로 형성되어 100% 그에 해당되는 영계에 가서 살고 있다.
19. 세상에서도 사기꾼의 이론을 듣고 행하면, 아무리 그 소망이 청청해도 사기를 당하고서 판 세계에 처해 살듯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20. 세상에서 비진리를 절대시하며 자기들끼리 통하며 살았어도,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고 '진리'가 아니면 마치 시험 볼 때 답을 못 써서 탈락하는 자와 같이 영계에서도 그리된다.

21. 세상에서 그리 큰소리를 치며 엄청난 종교를 이끈 자들이 세상에서 그렇듯 영계에서도 그런가 하고 보니, 비슷한 형태의 모임도 없었고 그 주인공도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세상에서나 그리 무성하지, 영계와는 무관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다 흩어져서 거기에 처한 길을 가고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러하다. <육계>와 <영계>는 ‘이념’도 ‘제도’도 다르다. 절대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비슷한 말을 해도 비진리이니, 영계에 가서 보면 그 영들이 ‘사망의 세계’에 처해 살고 있다.<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 ‘진리’를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한 대로 영들이 ‘황금성 천국’으로 간다.

22. <꿈>을 통해 ‘영계’를 접해 보아라. <지상영계>는 육계와 같이 형성되어, ‘혼’들이 지상에서 한 세상을 이루고 활동한다. 그 혼들 중에는 육이 세상에 있는 자도 있고, 죽어서 없는 자도 있다.

23. <혼의 세계>에서도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대화도 하며 ‘육의 세계’같이 활동한다. 그러나 육계와는 ‘제도’가 다르다.

24. <혼계>에서도 실수하니,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25. <혼계>에서도 처음 만나는 자와는 대화도 하고 사귀면서 ‘자기 이론’을 가르쳐야 자기를 알아본다. 다만 육처럼 말을 듣거나 하지 않고, 이상하면 안 믿고 가 버린다. <대화>도 육신이 하듯이 많이 안 한다. <혼>은 ‘육’보다 급이 높으니 말을 안 해도 거의 알기는 하지만, 혼과 영의 세계에서도 말을 해야 할 것은 해야 안다.

26. <사명>은 말하기 전에는 영의 세계에서도 모른다.

27. <혼>을 보고서는 그 육이 누군지 잘 모른다. <육>과 <혼>이 비슷해도 ‘변화된 혼’은 이목도 바뀌고, 빛이 나서 봐도 잘 모른다. 그 육의 얼굴의 이미지만 약간 표가 날 뿐이다.

28. <육계>에서 친하거나, 자기와 심정이 같은 자>는 그 혼의 형체가 바뀌었어도 혼의 세계에서 보면 바로 안다.

29. <혼계>라도 전적으로 보려면, 전적으로 기도하여 갓출 것을 갖춰야 된다.

30. 성령과 대화하고, 주의 영과 대화하여 배워라. 그러면 확실하다.

31. 세상에서 왕을 했어도, 재벌이나 명예가였어도, 각종 벼슬을 했어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영은 전혀 딴 세상에 처해 산다.

32. 세상에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 되어 그가 전하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그 영이 ‘성공한 영’이 되어 ‘하나님께 속한 세계, 천국’으로 가게 된다. 보통으로 해서는 안 된다.

33. 세상에서도 전적으로 공부해야 원하는 곳에 합격하여 가게 되듯, 전적으로 집도 짓고 환경도 개발해야 그곳에서 살게 되듯, <신앙>도 전적으로 해야 영이 ‘하나님께 속한 형체’로 형성되어 구원받고 휴거되어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가게 된다.

34.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보아라. 제대로 안 한 것은 안 되었다.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35. 영계에 가서 보면, 그렇게도 무수한 영들이 그저 세상에서 살듯 보편적으로 산다.

36. 세상에서 그렇게도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이끄는 것이 메시아 역사다.’ 했던 자들도 때가 되니 스스로 주저앉고 흩어지고 망했다. 오직 ‘절대 진리, 절대 하나님의 역사’만 영영하다.

37. 어떤 자들은 살면서 사업이나 자기 일을 세상 사람들같이 한다.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도

‘육’에 속해서 하면, 육계에서만 무성하다. 영계에 가면 사망에 처해 있다. <우상 종교>도 육계에서는 무성하다. 영계에 가서 보면, 그 세계가 없다. <사망권의 세계>다. 육계와 다르다. 세상에서 전능자를 떠나 육에 속해 살았으니, 그 영들은 ‘하나님 주관권’에 못 간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행했으니, 마치 열매 없는 잡풀, 잡나무와 같아서 꽃은 피서 엄청난데 가을이 돼도 열매가 없는 것이다. <가을>은 ‘영의 세계’를 비유한 것이다.

38. <종교>가 저급할수록 조건이 더 많다. <구약> 때도 수준이 저급하니, 얼마나 조건이 많고 까다로웠느냐. 지금도 그러하다. <종이나 자녀>는 ‘애인’과 조건이 다르다.

39. <노래>도 ‘가사’가 다르면 ‘곡’이 다르듯이, ‘상대’에 따라 조건도 다르다.

40. <지상영계>에 가니 많은 자들이 있기에, 그들 중 말씀을 가르쳐서 생명권으로 인도하려고 한 명씩 보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말씀을 전해 줄 만한 상대가 없었다. 육계도 그렇듯 영계도 그러하다.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구원의 표적을 일으킨 자들’이다.

41. <시대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아라. 마치 사막에서 샘을 발견한 것과 같다.

42. 육계나 영계를 보면, 거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택한 자>가 있으니, 찾아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면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43. <만물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계시를 받아도 대상과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육적으로 보니, 육의 것만 보고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고 만다.

44. <계시>는 ‘그 대상과의 연결’이다.

45. 영계나 혼계나 육계나 안 배우면, 모른다. <자기 육>이 배우고 알면, 육을 통해 그 혼도 알고 영도 안다.

46. <물건>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어야 완성되듯, <신앙의 세계>도 만들 때 완전하게 만들어야 ‘완전한 세계’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혼도 영도 완전하게 형성된다.

47. <육>이 보통으로 행하고 혼계에서 보면, ‘보통으로 한 것’이 그대로 보인다.

48. <사랑>도 절대적으로 하고, <의를 행함>도, <관리>도 절대적으로 해야 확실하다. 마치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확실하게 꺼내 놓듯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된다. 물에 떠내려가는데 잡아 주다가 그냥 놓으면, 다시 떠내려간다. <구원>도 <휴거>도 확실하게 해야 확실하다.

49. 하나님도 성령도 말씀하시길 “할 때 아예 뿌리까지 뽑듯 하여라. 그럭저럭 해 놓으면, 그 존재물은 쓰지를 못한다. 잠언도 설교도 확실하게 완성해야 잠언과 설교로 쓰여지듯, 만사가 그러하니 할 때 완성해 버려라.” 하셨다.

50. 만들 때 여러 번 손대서 완전하게 만들어라.

<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영의 세계>나 <육의 세계>나 배워야 안다.

2. <하나님>도 <메시아>도 <천국>도 <황금성 천국>도 ‘배운 자’만 안다.

3. 안 배우면, 메시아를 보고 같이 살아도 모른다.

4. <사상과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육’이 아무리 예쁘고 멋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5. <영이 구원받지 못한 자>는 그 ‘육’이 어떤 미인이란도, 재벌이란도, 명예가란도 아무것도 아니다.
6. <휴거되지 못한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직위가 높고 인물을 휘날리고 명예를 휘날리며 살아도 당시 일순간에 불과하니, ‘휴거된 자’가 볼 때는 ‘길가에 핀 예쁜 한 송이의 꽃’과 같으니 그리 보고 대한다. 열매가 없으니, 한때가 지나면 사라진다.
7. <휴거된 육과 영>은 세상에 부러울 자가 없다. <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베푼 은혜와 대가 중에 제일 크다. <휴거된 영>은 영계에 가서도 ‘최고 좋은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과 기쁨으로 산다.
8. 월명동 꽃축제를 할 때 보면, 꽃들이 화려하고 환상적이다. 그러다 꽃이 지고 사라진 후에 가 보면, 꽃은 한 송이도 없고 죽은 풀잎이나 나무만 앙상하게 있다. <구원받지 못한 영들>도 그러하다. 육신 한때는 화려하다. 그러나 그 영은 ‘꽃이 떨어진 풀이나 나무’와 같아서 육의 세계가 끝나면, 그 영이 영의 세계에 가서 사경을 헤매며 사망의 땅에 혼자 돌아다닌다. 그러다 쇠약한 영이 되어 피골상접하여 혼자 광야를 돌아다닌다. 하나님과 성령께 저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 휘날리며 살던 자가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 하신다. 세상에서 육만 위해 살았지 전혀 영의 세계를 모르고 살던 자다. 그 세계에서 다시 배우고 자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구원자도 없고 자기를 이끌 인도자도 없다.
9. <영계>는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간다. 어떤 영은 산골짜기에 혼자 있기도 하고, 어떤 영은 바닷가에 혼자 다니기도 한다. 혼자 적적하니, 미쳐서 다닌다. 사람 하나라도 만나려고 해도, 그곳에는 일 년이 지나도 단 한 명도 안 간다. 이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주를 외면하고, 자기 육신의 재미만을 위해 산 짓값을 받는 것이다.
10. <영계>도 그 세계마다 다 다르다.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거하는 곳도 결정되는데 어떤 영들은 ‘초가집’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영들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기도 한다.
11. 영계에서 끼리끼리 그 급대로 모여 살기도 하고, 서로 마음과 생각이 안 맞아서 따로 살기도 한다.
12. <세상에서 악하게 산 자들>은 영계에서도 ‘악의 영’이 되어 산다. 어떤 악의 영은 혼자 다니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혼자 있으니 해할 자가 없어서 그 환경에서 혼자 괴로워하며 산다. 그곳은 하나의 ‘영의 감옥’이다.
13. <귀신이 되어 다니는 영>도 많다. <육신>이 ‘귀신 같은 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니, 자기 영도 ‘귀신의 영’이 된 것이다. 그 사고가 완전히 철판같이 굳어서 영원히 귀신의 사고를 가지고 산다. 이미 그같이 되어서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처해 살고 있다. 그런 사고는 마치 쓰레기가 쓸모없듯 쓸 것이 없다.
14. 세상이 넓듯, 영의 세계도 넓고 넓다.
15. 세상에서 자기 삶을 벗어나기 어렵듯이, 영계의 영들도 자기 삶을 벗어나기 힘들다.
16. <자기 육>이 일생을 살면서 ‘영의 세계의 운명’도 그같이 결정되었으니, 자기 영이 한 번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처해 가면, 그곳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 육신의 행위대로 그것이 ‘자기 영의 생각’이 되어 그 사고가 꼭 차고, 체질이 되었기 때문이다.
17. <육계>에서도 자기 삶을 뒤바꾸기는 힘들다. 이미 자기가 살아온 것이 체질이 되어 벗어나기 힘든 것이다. 그 행위대로 영도 그와 같은 형상이 되었으니, 자기가 처한 세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무>도 ‘돌포도나무’는 스스로 ‘돌포도나무’를 못 벗어난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18. <육신>은 화려하나, <영>은 정반대다. <휴거된 자>는 그 육이 보통이어도, 영은 신비하고 아름답고 화려하다.
19.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고 살아왔다는 것>은 ‘기적’이다. ‘자기의 표적’이다.

20. <새 시대>는 ‘구시대’와는 아예 딴 세상이다. 구시대를 봐 왔으니 안다.

21.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살던 곳이 좋다고 한다. <모르는 자>는 자기 삶을 ‘영광’으로 알고 산다.

22. <육계>는 다 거기가 거기라고 하며, 자기가 살던 곳이 좋다고 한다. <영계>에서 보면, ‘구시대 주관권’과 ‘새 시대 주관권’은 아예 다르다.

23. <육계>에서 보면, ‘아파트를 선호하는 자들’은 다 아파트를 선호하며 그 세계에서 좋아 산다. <도시를 선호하는 자>도, <시골을 선호하는 자>도 각각 그러하다. 모두 자기가 처해 사는 곳을 자랑하며 좋아서 산다. 이같이 <영계>에서도 모두 ‘자기가 처해 사는 곳’을 자랑하고 좋아하며 산다. 그 이상의 딴 세계를 모르니 그러하다. 딴 세계는 그 급이 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다.

24. <자기가 처한 주관권>만 보면, ‘더 이상의 것’은 모른다. 고로 자기 것에만 만족하며 산다.

25. 제 나름대로 왕 살아 먹으면서 살아가나, 그 근본을 보면 마치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지고 화려함도 사라진다.

26. 여름에는 무성하니 모두 비슷하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인생 삶>도 그러하다. <영이 구원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으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화려하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안 됐는데 끝내야 되는 때가 온다.

2. 안 됐다고 하며 끝내지 말아라.

3. <안 되는 때>가 있고, 그 후에 <되는 때>가 뒤따라온다.

4. 예전에 선생 아버지가 한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길, 어떤 자가 광산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3년이나 팠는데 금이 한 톨도 안 나와서 거기를 팔고 갔다고 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얻어서 3일 동안 팠는데, 금이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수십 관을 켜다고 했다. 이 사연을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평생 그리하라고 하셨다. 이같이 ‘안 될 때’가 지나면 ‘될 때’가 뒤따라온다. 그리고 ‘될 때’가 지나면 그다음에는 ‘안 될 때’가 시작된다. <축구 경기>도 그러하다. ‘안 될 때’가 지나면, ‘될 때’가 온다. <길>도 고속도로를 지나면 목적지가 나온다. <역사>도 ‘안 될 때’가 지나면 ‘될 때’가 온다.

5. <주를 기다리던 때>가 지나면, ‘주가 와서 만날 때’가 온다. <그때>를 구분하고 분별하여라. 이 ‘지혜’를 깨닫고 행하여라.

6. <안 될 때>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몸부림치며 행하여라. <될 때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

7. 끝까지 하면, ‘안 될 때’도 주인이 되고 ‘될 때’도 주인이 된다.

8. <지혜자>는 ‘안 될 때’는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될 때’ 한다. <비가 올 때> 피하고, <날이 좋을 때, 잘될 때> 나와서 한다.

9. <될 때> 많이 해라. <안 될 때>는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니, 못 한다.

10. <안 될 때, 애가 타던 때>를 생각하고, <될 때>가 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라.

11. <될 때>는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치는 계절이 지나가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계절이 돌아와서 열매 맺듯 하니, 이때

는 거두기만 하면 된다.

12. 바닷고기도, 강고기도 ‘때’에 맞춰 크고 자란다. 그때가 ‘될 때’다.

13. 모든 만물과 사람들도 ‘때’에 맞춰 살아간다.

14. <될 때>는 상대가 아쉬워서 자기에게 팔고, <안 될 때>는 오히려 상대가 자기 것을 사 가려고 한다.

15. <될 때의 가치>를 알고 행하여라.

16. <안 될 때>는 천 리를 가도 없고, <될 때>는 문전(門前)에 나가도 있다.

17. <안 될 때>는 지구가 돌아가서 태양빛도 천리만리 멀리 가 버리고, <될 때>는 지구가 돌아와서 태양빛이 문전에 와서 노크한다.

18.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될 때’다. 이때는 조건을 세우고 받기만 하면 된다.

19. 지금은 ‘휴거 때’다. ‘될 때’다. 이때가 지나면, 지구 세상 그 누구도 안 된다. 몸부림치고 몸이 뛰어다녀서 다 닳아도 안 된다. <될 때>는 누워서 전화만 해도 되고, 손만 움직여도 된다.

20. <장마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댐과 연못에 물이 고인다. 그때는 가물었던 논밭에도 물이 고인다. 그러나 때 지나면, 물을 주려고 해도 물이 없다.

21. <될 때>는 철새같이 밀려오고, 때 지나면 흙먼지만 휘날린다. 흙먼지를 온몸에 뒤집어써서 씻고 닦으려 해도, 그때는 물이 없는 고통의 기간이다.

22.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어서 밤낮으로 행하여라. <안 될 때>가 온다. 지금 될 때 해 놓고, 안 될 때는 누리며 잔치하기다.

23. <그림>도 안 그려질 때가 있다. 때가 지나가야 된다.

24. <될 때>는 ‘밀물’같이 밀려오고, <안 될 때>는 ‘썰물’같이 밀려간다.

25. <역사>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안 될 때>는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다.

26. <환난 때>도 그러하니, ‘될 때’가 오면 해야 된다. 그러면 잘된다.

27. 어떤 일을 놓고, 될 때 그 순간만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한다. 그때 판단하고 빛같이 실천해라.

28. <잘될 때>가 오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줄이고 행하여라.

29. <잘될 때>는 하나님도 앞장서서 도우시고, 상대도 감동되어 도와준다.

30. <잘될 때>는 파는 자가 좋아서 기뻐하며 팔고, <때 지나서 안 될 때>는 팔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안 판다.

31. <잘될 때>는 ‘황금 보화 위치를 만난 때’와 같다.

32. <건강>도 ‘잘될 때’는 건강하여 향우장사 같아도, ‘잘 안 될 때’는 건강이 계속 약해진다. 그때는 집중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

33. 가령 ‘150살 이상인 사람은 법에서 제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 말에 해당되는 자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 필요 없는 말로 위로하지도 말고 희망을 주며 관리하지도 말아라. <메시아가 하늘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몰라서도 그리 말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상술이며 위로하는 말과 같다. ‘실체’는 아니다.

34. <실체>는 ‘현재에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은 전혀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두고 희망을 주며 믿고 따르라고 유도하지 않으신다.

35. 하나님은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죽은 시체가 살아나 부활되고, 그 육이 하늘로 휴거된다.’ 하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모르는 자들이 신비한 쪽으로 해석하고 그리 말한다. <육>으로 해석하면, 신비하고 기적처럼 보인다. <영>으로 해석하고, <정신적>으로, <행실>로 온전하게 해석하면,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체’가 된다.

36. 현재 종교인들은 성경을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며 신비함을 느끼게 하고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다.

37. <순리>에 맞게 ‘되는 쪽’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맞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 살아간다.

<2017년 11월 2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부탁하면 안 할 것도 해진다.

2.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하게 된다.

3. <자기가 한 것을 보여 주고 들려 줄 자>가 있어야 ‘안 할 것’도 하게 된다.

4.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가 있어야 그를 위해 해 주려고 하게 된다.

5. <사람>은 쫓겨야 뛰게 되고, 문제가 있어야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

6. <살아 있는 생명>이 있어야 ‘그것을 보는 자’가 보고 깨닫고, 행할 것이 생겨서 하게 된다.

7. <계시>는 ‘계시할 것’이 있어야 만물로 계시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하지 않으신다.

8. <징조>나 <표적>은 모든 것을 맞춰서 그때만 순간 일어나게 하여 보이신다. 그때 못 보면, 못 본다.

9. <여섯 마리의 귀뚜라미가 일렬로 벽에 붙은 표적 계시>를 처음 봤을 때는 곤충도 지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보이신 ‘징조와 표적의 계시’였다. 그 계시대로 됐다. 그 이후로는 여섯 마리가 흩어져서 다니는 것도 못 봤고, 한두 마리가 같이 있는 것도 못 봤다. 한 마리가 순간 나와서 방에 뛰어 돌아다니면 그때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서 사라지면 열흘이 지나도 흔적도 없었다. <계시하여 보인 것>은 늘 보이던 식으로 ‘건물’로 보였다. <계시>는 마치 표정과 같아서 순간 한 번만 보이니, 볼 때 자세히 봐야 한다. 곤충이라 반복을 못 한다. 사람 같으면 다시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한 번 더 보여 달라고 해서 ‘제대로 못 본 것’을 또 볼 수 있다. 그러나 곤충은 이같이 못 한다.

10. <노래> 가사에도 ‘표적을 보일 때 자세히 보아라.’고 하였다.

11. 감동이 오고 깨달았을 때 순간 만물로 보이니, 그것과 연결된 것을 세밀하게 연결해 보고 기록하여 잊지 않고 계속 주시해야 된다.

12. 가령 바위 위에서 보석이 박힌 유리컵이나 귀한 청자기를 받을 때는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해서 두 손으로 조심하
받아야 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물 계시를 주시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눈으로 주시하고 손
으로 기록하면서 받아야 된다.

13. <특별한 것>은 특별히 계시하신다.

14. <보통 때>는 보고 ‘교훈’을 얻기도 한다.

15. <만물 계시>에 신경 쓰고 귀히 여기며 평소 생활할 때도 늘 삼위와 대화해야, 때가 되면 그때그때 해당되는 계시
를 보이신다.

16.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주가 특별한 때만 만물 계시를 보여도, 평소에 자기가 만물 계시를 배웠으면 갖가지 만물을
통해 삼위와 주와 대화하고 통한다. 그러다가 삼위가 만물로 특별히 계시하시면, 평소에도 삼위와 대화하고 통하여 능
숙해졌으니 잘 받는다.

17. <자기>를 유능하게 만들어야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그때마다 ‘마음’으로나, ‘만물’로나 대화하기 좋다.

18. 그릇대로 쓰니 자기를 만들고, 성령께도 고하여라.

19. <자기>가 기도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차원이 높아지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것’이 자꾸 깨달아지고 ‘만
물의 글’을 읽게 된다.

20.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존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합당하게 각종으로 보이시며 계시하신다.

21. <수백 년, 수천 년 전의 옛날 것>은 못 봤으니 알 수 없고, 혹은 알아도 확실히 모르는 것이 많다. 특히 성경에 기
록된 시대마다 일어난 사건들과 역사의 사건들은 그 당세에 못 봤으니,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한다. 이것도 하나님은
‘만물 계시’로 보이신다.

22. <당세에 일어난 것>도 잘 모르면, 간구한 자에게는 ‘만물’로나 ‘시대 말씀’이나 ‘성경’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 깨닫게도 하신다.

23. 자기 급수대로 보고 깨닫게 된다.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의 사소한 죄>는 안 지으면 되는데, 짓고 산다.

2. 정신 차리면, 안 짓는다.

3. 정신 차리면, 잡다한 것이 안 보이고 생각이 안 난다.

4. 정신 차리고 살면, 잡다한 것들이 생각에 안 부딪힌다.

5. 그냥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잠>이 오면 잠을 안 자려고 잠을 이겨야 하듯, <죄>도 안 지으려고 죄를 이겨야 안
짓게 된다.

6.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없듯이, <죄>도 그냥 안 지을 수 없는 것이다.

7. <죄>를 안 지으려면, ‘죄를 안 짓는 일’을 해야 안 짓게 된다.
8.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 ‘죄’를 안 짓게 된다.
9. <죄를 짓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의 목적’을 이루니, 죄를 짓게 된다.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목적>대로 할 때, ‘죄’가 아니고 ‘의’가 된다.
11. <남녀의 사랑>을 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성 죄’요, ‘타락’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12. <노아 때>도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랑하니, 그것을 ‘죄’라고 하시고 심판하여 멸하셨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13. <인간>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게 된다.
14. <물체>도 ‘같은 액체’끼리는 통한다.
15. <동물>도 ‘같은 동물’끼리는 통한다.
16. <생물>도 ‘같은 생물’끼리는 통한다.
17. <물>끼리는 서로 통한다.
18. <불>끼리는 서로 통한다.
19. <사람>도 ‘같은 생각’끼리는 서로 통한다.
20.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서로 통하고 일체가 된다.
21. 하나님께 맞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답하신다.
22. <휴거의 비밀>을 모르고 보면, ‘육’이 하늘로 올라가는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알고 보면, 휴거의 비밀은 간단하다. 그러나 휴거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이를 수가 없다. 곧 절대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절대적 사랑’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그같이 주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뜻을 위해 성자는 ‘보낸 자의 육’을 쓰고 성령과 함께 행하셨다.
23. <육의 휴거>는 땅에서 ‘육’이 행하여 이루고, <영의 휴거>는 ‘영’이 황금성 천국으로 가서 이룬다.
24. <영>은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되고, <육>은 휴거를 이루고 땅에서 살게 된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혼이 ‘영’과 일체 되어 천국으로 간다. <육체 덩이>만 천국으로 못 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과 혼체’가 ‘영’과 일체 되어 천국에 가니 육이 가는 것과 같다. <생각과 정신>은 ‘인간 지체의 핵’이다. <인간 지체의 핵>이 ‘영체’와 일체 되어 가니, 자기 육이 가는 것과 같다.
25.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서 그 ‘영’은 지옥에 갇어도, ‘육신’은 죽을 때까지 땅에서 산다. 다만 췌값을 받고, 땅에서 육신이 지옥의 삶을 산다. <육>은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육에 속한 마음과 정신과 혼이 ‘영’과 일체 되어 지옥에서 그 췌값을 그대로 받는다. 고로 육신이 지옥에 간 것과 같이 생생하다. <육체>는 죽었어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영체’와 일체 되어 갇기에 그러하다. 다른 사람의

몸이 아니고 자기 육이 간 것과 같다.

26. 흔히 사람들은 말하길,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육체>는 끝나도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혼체’와 일체 되고, <혼체>는 ‘영체’와 일체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육신은 죽었어도, 그 마음과 생각이 영과 일체 되어 ‘지옥’에 가서 살게 되거나,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 휴거된 자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27. <휴거된 자>는 그 영이 ‘황금성 천국’에서 천 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땅에서는 육신이 살아 있는 동안 마치 결혼 생활을 하듯 삼위와 사랑의 삶을 사는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28. <성약역사의 혼인 잔치>는 ‘결혼한 삶을 살듯 삼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천 년 성약역사 기간 동안 혼인 잔치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29. 마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며 살듯, ‘삼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삶을 사는 신앙의 혼인 잔치’다.

30. <삼위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혼인 잔치’라고 하였다.그리고 <하나님을 중심한 육적인 결혼>은 ‘육적인 혼인 잔치’다.

31. <사랑>도 ‘이론’으로 설명하면 어렵다. 실천하면, 설명이 필요 없다.

32. <말씀>도 ‘실천’해라. 그러면 설명이 필요 없다.

33. <실천>은 실감 나게 한다.

34. <휴거>도 ‘이론’으로는 한 명도 이루지 못한다. 알고 ‘실천한 자’만 이룬다.

35. <이론>은 ‘지식’에 불과하다.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36. <천국>은 ‘실체’로 존재한다. 고로 천국에 가려면, 땅에서 ‘실체’로 육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행해야 된다.

37. <육신>이 죽는다고 다 ‘휴거된 자들이 가는 황금성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땅에서 행해야 ‘황금성 천국’에 가게 된다.

38. 행해야 ‘집’도 건축되고, ‘땅’도 개발되고, ‘물건’도 사서 얻듯이, 행해야 육신을 통해 영이 ‘황금성 천국에 속한 영’으로 형성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게 된다. <자기 영>이 형성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가게 된다.

39.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대로 그들의 영이 ‘하나님 주권권 밖에 있는 영’으로 형성되어, ‘구원이 없는 사망권, 흑암의 세계’로 가게 된다. 이들은 ‘죽은 영’이다. ‘사망권, 지옥에 속한 영’이다.

40. <자기 육체>가 있듯이 ‘자기 영체’가 있다.

41. <자기 육>을 제대로 구원시켜야, ‘영’도 구원시킨다.

42. 세상에서 ‘육’이 먹고 입고 사랑하는 것만 해 놓고 살면, 육이 세상에서 살 때만 누리고 육이 죽으면 끝난다. 자기 육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자기 혼체와 영체는 사망으로 간다.

43. <영을 구원해 놓지 않고 육만 누리는 자>는 ‘안타까운 고통의 앞날, 지옥의 앞날’이 점점 오고 있는 것이다.

44. 인간은 모르고 산다.

45. <육신이 살고 있는 세상>은 안다고 하나, ‘영의 세상’을 안 배우면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46. 한 꿈에 보니, 해가 질 무렵 어떤 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좋고 비싼 각종 물건들을 쌓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튿날 일찍 그 길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좋은 물건을 사 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누구든 일찍 일어나서 가야, 자기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사 가게 되는 것이었다. 이 꿈을 깨닫고 보니, 이와 같이 신앙 세계에서든 하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이라는 ‘돈’을 투자한 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 가게 하신다 함이었다. 늦게 오면, 좋은 것을 다 골라서 사 갔으니 없다.

47.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어도 ‘모르는 자’는 모르는 것이다.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다 행하신다.

2. 어떤 것은 했어도 ‘한 가지’만 하니, 후에 후회를 한다.

3. 가령 작품을 만들 때 두 가지 형상 중에 ‘한 가지 형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보다가 후에 다른 형상을 보고 싶어 한다. 고로 아예 두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병행하면서 쓰게 되니 후회를 안 하게 된다.

4. 하나님은 ‘두 가지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고로 때에 따라 병행하면서 사용하시고, 세상 모든 자들에게도 이 같이 사용하도록 주셨다.

5.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어 낮에는 ‘해’만 사용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만 사용하신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다 창조하시고 때에 따라 병행하며 사용하신다.

6. <월명동 자연성전>도 ‘두 가지’로 창조하시어 때에 따라 병행하며 사용하게 하셨다. <두 가지>로 창조하시어 ‘후회와 아쉬움’이 없게 하셨다.

7. 하나님은 ‘두 가지’로 창조해 놓으시고, ‘두 가지’로 사용하게 하셨다.

8. <월명동 폭포>도 넓게도 사용하고, 좁게도 사용하도록 ‘두 가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도록 구상해 주셨다.

9. 운동장도, 잔디밭도, 돌 조경도 모두 ‘두 가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예배도 드리고, 청중이 모이는 곳으로도 만들고, 축구나 각종 운동도 하게 만들고, 돌 조경에 앉을 수 있게도 만들어 놓았다.

10. <폭포수 아래의 물탱크>도 ‘물을 받는 곳’으로도 쓰고, ‘수영을 하는 곳’으로도 쓰도록 ‘두 가지’로 만들었다.

11. <자기>도 ‘두 가지’로 사용하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때에 따라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면서 다양하게 원하는 대로 살게 된다.

12. <집>도 ‘두 가지 형상’으로 건축해 놓으면, 두 가지로 다 사용하게 되고 후회 없이 좋아한다.

13. <3.16 휴거기념관>도 기념관같이 웅장하게도 건축하고, 아름답게도 건축하였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합당한 크기로 만들었다.

14. <산책로>도 하나는 넓게 만들고, 하나는 좁게 만들어서 때에 따라 넓게도 좁게도 사용하게 했다.

15. <두 가지 창조>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다.

16. <두 가지 창조>는 가령 돌 작품이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사다 놓은 격과 같다. 두 가지가 다 있으니, 때에 따라 합당하게 보며 사용하게 된다.

17. <두 가지를 창조한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과 같다.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만 창조했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창조했어도 후회하셨을 것이다.

18. 섭리사에서 월명동 자연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모두 ‘두 가지’로 구상을 주시어 만들게 하셨다. 고로 다양하게 후회 없이 제2창조를 하였다.

19.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한 가지’만 만들어 놓으면, 후에 다른 형상을 원할 때 그것이 없으니 후회하고, 미련과 아쉬움이 남게 된다.

20. 사람은 ‘한 가지 형상’에 만족하지 않고 ‘양단의 것’을 다 해야 만족한다.

21.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는 웅장하게, 또 하나는 아름답게, 또 하나는 신비하게 창조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이며 ‘100% 완전한 창조’이다.

22. <자연석>도 ‘두 가지 모양과 형상’이 있으면 이상적이고, 값있는 작품이다.

23. <성자바위>같이 한 바위에 ‘일곱 가지’나 형상이 갖춰져 있으면, ‘완전한 대결작, 희귀종 형상석’이다.

24. <월명동 지형>도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형상인 ‘자미원 형상, 금계포란 지형, 백보좌 형상, 자궁 형상, 반월 터, 좌청룡 우백호가 둘러싼 형상’과 ‘별 모양’ 형상이 갖춰져 있다. 천하에 최고 좋은 형상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25. <3.16>도 ‘성자가 오신 날, 구원자가 태어난 날, 휴거 날, 알파와 오메가 날’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날이다. <여러 가지 형상을 갖춘 성자바위>와 같이 ‘하나님의 최고 뜻이 있는 날’이다. 137억 년의 역사 중에서 최고로 좋은 날이다.

26. <땅과 하늘의 모든 창조 구상>이 이와 같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구상이시다. 깨닫고 보아라. 그러면 기뻐 만족한다.

27. 만들어 놓았으니, 깨닫기만 하면 된다.

28.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최고 좋은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최고 궁’으로 만들어 쓰신다.

29. <사람>도 전체를 보면, ‘각 지체의 위치’가 있다. 그런데 그 위치에 그 지체를 안 만들고 다른 데 만들면, 환경도 안 맞고 사용도 불편하다. 절대 안 된다. 이같이 지구 세상도 그 환경에 맞는 존재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살게 하셨다. <월명동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도 그러하다. 그 모양과 형상에 맞게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만들게 하시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역사를 펴 가신다.

30. <삼위와 주>를 모시고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31.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도록 해 드렸기에 만족하게 하신 것이다.

32. 자기가 하면, 만족한 것이다.

33. 자기가 시켜서 시킨 대로 하면, 만족한 것이다.

34.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것이다.
35. <사람의 모양과 형상>이 어떻게 생겼든지, ‘여호와와 뜻을 이루는 자’를 최고로 보신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뤄야 앞날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37.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수가 없다.
38. <월명동의 목적>을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시대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39.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데, 그보다 못한 것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다. 이는 가진 것은 이미 사용해 보았는데,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해 보지 않아서다. 하나의 호기심이기도 하다. 그러다가 후에 못한 것을 택하여 좋은 것을 놓치고 후회한다.
40. 좋아하고 행하면, 그것으로 뇌가 뒤바뀌어 버린다.
41. <모조품>은 ‘배우는 연습용’인데, 진짜인 줄 알고 그것으로 결정할 뻔했다.
42. 각자 저마다 모조품을 가지고 연습하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좋아서 택하고 사기도 한다.
43. <월명동>도 개발할 때는 호수 옆에 조경을 쌓아 여러 번 연습하고 만들었다.
44. <호수>도 처음에는 작게 ‘연습용’으로 여러 번 만들었다. 만일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했으면, 실패했을 것이다.
45. <연회장 폭포>도 여러 번 연습용으로 쌓아 보고 했다. 그 후에 최종적으로 폭포수와 수영장을 만들었다.
46. <앞산>도 다섯 번이나 쌓으면서 연습하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에 ‘최고 대결작’을 만들었다.
47. <좋은 것>,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그러하다.
48. <모르고 무지한 자>는 ‘연습용’을 두고 ‘보화’라고 얻고 만족해한다. 가다 보면, 점점 시들고 실체가 드러난다. <역사>도 그러하다. <과거>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며 ‘연습용’이다. 처음에는 ‘연습용 역사’로 한 것이다. 그러다 점점 배우고 행하여 ‘최고 하나님의 목적, 휴거 역사’를 이뤘다.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누구나 그때 처한 환경에 따라, 그때 받는 생각에 따라 행하기에 같이 있어도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도 없다.
2. <사람의 뇌>는 선악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흥분되면, 그대로 뇌가 가동되어 그 욕도 흥분된 대로 행한다. 그러니 옆에 있었어도 모른다.
3. <사람의 뇌>가 ‘분노와 울분’으로 흥분되면 뇌는 그대로 가동되어 그 욕도 뇌가 흥분된 대로 행하니, 이성을 잃고 때리기도 하고 살인도 한다. 그때마다 각종으로 뇌가 흥분된 대로 이성을 잃고 행한다. 그러다 후에 분노와 울분이 가라앉고 식으면, 자신이 왜 그리했는지 이해도 못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책망하며 후회를 한다.
4. <몸>은 ‘신경’에 따라 움직인다.

5.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뇌가 가열된다.

6. <처음 마음과 생각>으로는 싫으나, 뇌가 '분노와 울분'으로 흥분되면 그 생각대로 신경이 가열된다. <신경>이 가열되면, 그 생각대로 몸이 마치 자동 기계처럼 행해진다. 선한 일을 할 때도 그러하고, 이성으로 흥분되거나 울분이나 혈기, 분노로 흥분되어 악한 일을 할 때도 그러하다.

7. <뇌>는 마비되기 전까지는 각종 기능을 한다. <뇌>는 마치 솥에 넣은 물과 같아서 생각한 대로 신경이 가열되면 뜨거워져서 그 생각대로 몸이 행하니, 나쁜 것이나 불의한 것은 아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 아예 '뇌 신경'을 가열시키지 말아야 된다.

8. 아궁이에 불을 아예 때지 말아야 가열되지 않듯, 전기 스위치를 아예 누르지 말아야 움직이지 않듯, 불의한 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가열시키지 말아야 안 하게 된다.

9. <기계>는 한 번 스위치를 누르면, 못 멈추고 돌아간다. 이같이 <뇌 신경>도 한 번 흥분되면, 그 힘에 의해 선악 간에 각종으로 행하게 된다.

10. <엘리베이터>도 한 번 버튼을 누르면, 그 층까지는 가야 된다. 이같이 <뇌 신경>은 어떤 것이든 한 번 흥분시켜 놓으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으로도 흥분된 대로 좋아서 행해진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불의를 행할 때>도, <이성 사랑>도 그쪽으로 '뇌 신경, 몸 신경'을 흥분시켜 놓으면 그대로 좋아서 하게 된다.

11. <사람의 뇌 신경>은 '의의 일'이든지, '불의한 일'이든지, '사랑'이든지 어떤 것이든 그로 인해 흥분되면, 거기에 생각이 빠져서 이성을 잃고 행하게 된다. <뇌 신경>과 <몸 신경>이 흥분되면, 더 느끼려고 '흥분의 극'까지 가진다. <울분이나 혈기, 분노>로 흥분되면 '극'까지 행해지고, <이성>으로 뇌가 가열되어 흥분되면, 그로 인해 분별이 안 되고 '극'까지 해진다. 이때는 뇌가 흥분되어 분별이 안 되니, 평소에 자기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도 사랑하게 되고, 평소에 미워하지 않던 자도 각종 미움의 극에 처해 분노로 행하게 된다.

12. <뇌 신경>이 한 번 흥분되고 가열되면, 마치 경사진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는 것과 같아서 이때는 누가 막고 제재해야 멈추게 된다.

13. <뇌의 구조>를 알아라. <악과 불의>는 아예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귀로 듣지도 말아라. 그리함으로 '자기 뇌 신경과 생각'을 가열시키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14. <뇌 신경>이 의로 가열되면, '신'과 같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15. <악과 불의>인지 몰랐어도 '뇌 신경과 몸 신경'은 그대로 흥분되어 가열되니, '악과 불의'를 좋아서 행하게 된다. 좋아서 행하니, 뇌 신경이 더 흥분되어 계속 행하게 된다.

16. <선에 속한 일>이든, <악에 속한 일>이든 '뇌 신경'이 흥분되면,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하게 된다.

17. 어떤 것에 습관이 되면, 그쪽으로 '뇌 신경'을 흥분시키고 행하게 된다.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 소리 지르는 것도 그러하고, 각종 말과 행위도 그러하다.

18. <이성>을 계속 보면, 그쪽으로 뇌가 흥분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성을 만나게 된다. 만나면 생각하는 대로 뇌 덩이가 느끼고 가열되니, 상대가 누구든지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하게 된다. <뇌>가 흥분되면, 자기 본정신과 생각을 잃는다. 자기가 기쁘면 세상도 다 기쁘게 보이듯, 흥분이 '극'으로 가면 세상도 다 자기가 흥분된 대로 보인다. <세상>도, <자기 사랑의 대상>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만 '환각'으로 그리 느끼고 생각한다.

19.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 신경과 그 기능을 배우고, 알고 써라.

20. <뇌 신경>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 <뇌 신경>에서 ‘육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이뤄지고, ‘영원한 영의 문제’까지 좌우된다.

21. <신경 덩이>는 ‘기계의 모터’와 같다. 한 번 기계가 작동하면, 스위치를 끄기 전까지는 사정없이 움직이고 돌아간다. <뇌>도 그러하다. 고로 모두 배우고 알아라. <해서는 안 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말고, 귀로 듣지도 말고, 몸으로 행하지도 말아라. 아예 ‘뇌 신경’이 흥분하지 않게 하여라. 흥분을 안 시키면, 평생 그 면으로는 괜찮다. <성장한 사람>은 아니, 결코 안 한다.

22. <뇌 신경>을 가열하면, 온몸에 신경이 깔려 있으니 온몸이 느끼고 뇌 신경이 가열된 대로 하게 된다.

23. <뇌>는 생각한 대로 신경이 가열되고, 그대로 행하게 된다.

24. <뇌>를 다스리는 ‘생각’이 있다. <생각>으로 ‘뇌’를 다스려라.

25. <생각>이 ‘신경의 주인’이 되어 신경을 쓰고 다스리는 것이다.

26. <뇌>도 ‘생각’이 제재시키면 안 하게 된다. <생각>이 ‘주인’이다.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상황>에 따라 ‘들리는 소리’도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보이는 것’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진리>라도 그러하다.

2. 절대 존재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안 보일 때> 보면, 봐도 안 보이니 없다고 한다. <보일 때> 보면, 있다고 한다.

3. 존재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둘로 갈리게 된다.

4. 똑같이 존재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안 보이기도 한다.

5. <안 보이는 때에 보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평생이 가도 없다고 한다. <보이는 때에 보는 자>는 늘 보니, 있다고 한다.

6. <작은 자>는 존재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한다. <작은 자>들은 잘 안 보이니, 자세히 보고 판단해야 된다.

7. <바다의 배>들도 ‘작은 배’는 존재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안 보일 때 본 자>는 절대 없다고 하고, <보일 때 본 자>는 절대 있다고 한다.

8. <상황>에 따라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다.

9. <보일 때> 봤느냐, <안 보일 때> 봤느냐다.

10. <실제로 없는데 안 보인다고 한 것>은 ‘없다는 말’이 진리다. 다만, 실제로 있는데 그때의 ‘상황’ 때문에 안 보인다고 한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안 보일 때 봤기에 안 보인다고 한 것이 당연하다. <보일 때 본 자>도 ‘안 보이는 상황’에 있으면 안 보인다. 고로 안 보인다고 한 자의 말이 틀렸다고 했던 자기가 잘못됐음을 알게 된다. 절대자 하나님은 이를 알고 말씀하신다.

11. <큰 배>는 항상 잘 보인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지를 않는다.

12. <큰 사람>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때가 거의 없다.

13. <병아리>는 있어도 ‘상황’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하나 <큰 닭>은 잘 보인다. 다만, <큰 닭>도 존재하고 있어도 ‘상황’에 따라 안 보일 때가 더러 있다.

14. 가령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착오가 없도록 여러 사람이 보게 했다 하자. 한 사람을 눕혀 놓고 멀리서 보니, 10명이 모두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10명에게는 그 사람을 세워 놓고 보게 했다. 그러니 있다고 했다. <누웠을 때 본 사람>들은 “없다.”고 주장하고, <서 있을 때 본 사람>들은 “있다.”고 주장했다. 각자 본대로 아예 다르게 주장했다. 자기 사고대로 주장을 펴 나가며, 다른 자들에게도 자기 생각대로 인식시켰다. <악한 자들의 이론>과 <선한 자들의 이론>도 이러하다. 어떤 편이 맞겠느냐. <선>은 ‘세워 놓은 것을 본 것’과 같고, <악인과 무지한 자>들은 ‘눕혀 놓은 것을 본 것’과 같다. 눕혀 있을 때 봤어도 존재하는 것이다. 왜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선에 속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말하길, “존재해도 눕혀 놓고 보면 안 보인다.” 하며 “상황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했다. 이 이론을 전하며 많은 자들을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너도 누워 보라고 하며, 눕혀서 보게 했다. 자기가 체험해 보니,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선의 말’을 인정했다.

15. <없다고 하는 자>는 있어도 ‘안 보일 때’ 보고 그 이론을 만들어 100%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자>는 있는 것을 100% 봤으니 그 이론을 주장하며 본 것을 설명해 나간다.

16. 누구든지 누워 있으면, 잘 안 보인다. 그러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잘 보인다. 하나님과 성령은 ‘생시에 있는 것’을 꿈의 계시로 보이시며, 이것을 깨우쳐 주라고 하셨다.

17. 존재하는데도 ‘상황’에 따라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18. 자기가 보일 때 봤어도, ‘상황’에 따라 안 보이기도 하니 그때는 실망도 하게 된다.

19. <팔 근육>도 그냥 다니면 안 보인다. 그러다 근육에 힘을 주고, 자세를 잡으면 보인다.

20.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해 놓은 것>도 ‘상황’에 따라 표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때 실망도 하고 ‘나는 뭐 했지?’ 한다. 그러다 신앙을 이탈하고 나가기도 한다. 고로 관리자들은 “나는 네가 잘한 것이 흰히 보인다.” 하고 이야기해 주어라. 혹은 선생에게 이야기하면, “누워서 보듯 네 신앙도 그리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잘 안 보인다. 서서 보고, 뛰자.” 한다. <큰 자>도 누워서 보면 충격 받을 정도로 작게 보인다.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생명을 관리하며, 보는 것도 ‘신앙이 서 있을 때’ 보고 지혜로 판단하여라.

21. <사람의 뇌>는 ‘생각’에 따라 어떤 때는 누운 것을 보듯 보이고, 어떤 때는 선 것을 보듯 보인다.<같은 물건이나 건물>도 어느 때는 크고 좋게 보이고, 어느 때는 아주 별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로 잘 봐야 된다.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봤느냐>가 ‘지혜의 판단’이다.

22. <큰 건물>은 ‘상황’이 달라져도 작게는 안 보인다. 생각이 그리 뒤바뀌지는 않는다.<큰 사람>도 그러하다.

23. <자기를 생각할 때>도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최고같이 생각되는 때가 정말 있다.<상황>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리 보인다.

24. <백지장을 볼 때>도 ‘정면’으로 보면, ‘측면’으로 볼 때보다 1500배나 더 넓게 보인다. 보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25. <진리>도 ‘상황’에 따라 작게 보일 때가 있으니, 진리가 잘 보이고 잘 인식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줘야 된다.

26. 사람을 눕혀 놓고 아무리 크다고 설명해도, 안 보이니 안 믿는다. 세워 놓고 설명하면, 보이니 그때서야 인정하고

믿는다.

27. <섭리사>도 ‘사명자’를 세워 놓고 증거해야 쉽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많아진다. 숨기고 이지가지 이야기해 봤자 얕혀 놓고 설명하는 것과 같아서 안 보이니 절대 안 믿는다. 전도자도, 증거자도 이를 깨닫고 해라.

28. 세워 놓고 설명하면, 설명하는 자도 힘이 안 든다.

29.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본 자’와 ‘안 본 자’ 같은 입장으로 ‘두 가지 주장과 사고’를 가지고 이론을 펴며 싸우고 겨룬다.

30. 새벽에 꿈에 보니, 어떤 물건을 두고 한 사람은 1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속여 팔았다고 하며 울분하고, 한 사람은 5만 원짜리를 100만 원으로 속여 팔았다고 하며 울분했다. 이를 겪고 와서 내게 이야기하기에, “이것을 모두 기록해 두고 사람들에게 실제 상황을 보여 주며 교육하자.”라고 했다. 고로 이 꿈과 같이 ‘실제 상황’을 두고 ‘깨닫게 하는 잠언 말씀’으로 기록하여 모두에게 알려 주는 것이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한 교회에 있어도 ‘상황’에 따라 본 것이 다르고, 또 안 본 것이 다르기에 서로 다툼을 하게 된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상황에 같이 처해 보고 나서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여라.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종교도, 민족도, 세계도 같이 보고 같이 의논하지 않으면, 마치 ‘본 자’와 ‘안 본 자’ 같아서 서로 의견 차이로 다투게 된다.

2. <큰 것>은 모두 보는 것이 같아서 착오가 없으나, <작은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안 보이게 되니 착오가 생긴다.

3. <보인다고 하는 자>는 늘 보이는 쪽에서만 본다. 그러다 안 보이는 쪽에서 보면, 안 보이니 ‘안 보인다고 하는 자의 말’이 맞다고 하며 그쪽으로 끌려가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가 본 것’이 있으니, 본 것을 중심으로 이기면 된다.

4. 어서 ‘보이는 쪽’으로 가르치고 알려 주어라.

5.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확실히 배우고 안 자>는 ‘본 것’과 같으니 넘어가지를 않는다.

6. 저마다 어떤 상황에서 듣고 보았느냐에 따라 그 존재를 시인하게 된다.

7. 교회가 난 것을 보고 정말 좋아했어도, 어느 때는 ‘보통이네. 다른 큰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멋있지는 않네.’ 해진다.

8. <자기>도 다른 자와 비교하면 ‘보통이다.’ 할 때가 있다. <비교>도 잘못하면, 실망한다. <개성>으로 따지면, 실망하지 않는다. <자기 개성>은 크나 작으나 다른 자에게는 없다.

9. 어떤 것은 성자에게 받고서 보통으로 보고 ‘성자가 주셨으니 귀하지,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생각했다. 어느 날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비교하면 작아서 실망하니 안 한다고 했다. 이에 말씀하시길, “그러면 기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좋은지 깨달아 보아라. 기도하는 만큼 깨닫게 해 줄게.” 하셨다. 기도하니, ‘위치, 환경, 모양, 형상, 존재물’ 등을 깨닫게 가르쳐 주셨다. 70여 가지의 좋은 점이 가득했다. 나는 ‘산이 좀 높으면 좋겠다. 다른 것은 좋은데...’ 했었는데, 배우고 보니 산이 높으면 오히려 다니기 불편했다. 다 배우고 내 것과 다른 지역의 것과 비교해 보니, 그것은 내 것보다 좋은 점의 가짓수가 적었다. 고로 깨달아지기를, ‘좋은 것인데도 깨닫지 못할 때는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은 것을 알게 되고, 비교해서 볼 때는 ‘개성’으로 비교하면 더 빛이 나고 가치를 알게 된다.’ 했다.

10. <자기 인생>도 ‘개성’으로 얼마든지 비교해 보아라. 그러면 자기 인생이 기쁨과 희망이 된다.

11. 저마다 어떤 뜻을 두고 자기를 창조하셨는지 연구하고, 좋은 점을 각종으로 다 찾아내 보아라. 그러면 그때는 다른 것과 비교해도 실망하지 않는다.

12. <월명동>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게 미약했다. 냇물이 시원스레 흘러가지도 않고, 기암절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소나무가 웅장하게 있지도 않고, 비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곳의 경치와는 비교가 안 되었다. 그러나 7~8년간 월명동에 대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배우면서 ‘좋은 점’을 깨닫게 되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궁’이니 이왕이면 바위 절경도 있고, 또 내도 흘러가고, 소나무도 수백 년씩 묵은 노송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다른 지역의 관광지같이 더 빛이 날 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 아쉽다고 했다. 경치도 별로라고 했다. 단지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난 곳이고, 다니기 편한 산들이라고 했다. 이에 삼위는 말씀하시길, “기암절벽을 만들면 오히려 청중들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다. 다만 물이 흐르는 곳은 없으니, 물이 흘러가는 곳을 만들면 된다.” 하셨다. 고로 누구나 보면 놀랄 만한 호수를 만들었다. 소나무도 수백 주를 캐다 심고, 나머지 수천 주의 소나무는 키워서 ‘소나무 숲’이 되게 하였다. 기암절벽도 20년간 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환경이 갖춰진 곳>에 원하는 호수도, 소나무도, 돌 조경도 만드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곳이 되었다. 성자께 배우니, 월명동의 좋은 점이 70여 가지나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아름답고 웅장한 곳과 비교해 보니, 그곳과는 비교도 안 되게 월명동이 좋았다. 고로 주는 저마다 자기도 월명동같이 개발하라고 외쳐 왔다. <자기>도 개발하고 나서 마치 월명동이 갖춘 형상과 모양을 찾아내듯 좋은 점을 찾으면, 누구든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시대 최고 목적, 휴거를 이룬 자’가 된다.

13. 사람을 ‘눅혀 놓고 볼 때’와 ‘엎히거나 세워 놓고 볼 때’는 그 존재가 달리 보인다. 눅혀 놓고 보면 존재해도 안 보이고, 세워 놓고 보면 보인다.<사람>도 세워 놓고 봐야 ‘좋은 것’이 보이고, 그 존재가 보인다.

14.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때 지나면, 나 잡아도 안 된다.” 하셨다. 고로 할 때, 있을 때 미리 해라.

15. <사람의 약점과 모순이 있을 때 본 자>는 항상 약점과 모순으로 보고, <좋을 때 본 자>는 항상 좋게 본다.

16. <죄를 지을 때 본 자>는 ‘죄인’으로만 보고, <의를 행할 때 본 자>는 ‘의인’으로만 본다.

17. <자기가 모르는 존재물>도 어느 때에 보았느냐에 따라 ‘생각’도 다르고, 그에 따라 ‘판단’도 달라진다.

18. <폭력 쓰는 자>는 ‘폭력자’에 대해 이해를 잘한다. 자기도 그렇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자는 폭력자를 늘 무섭게 본다.

19. <성격이 거칠고 과격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하나 되고 잘 어울린다. <성격이 유순한 자>들은 그들과 같이 안 지낸다.

20. 내 형제라도 나를 눅혀 놓고 보듯 하는 자는 항상 작게 보고, 혹은 아예 없다고 한다. 그런 형제는 죽을 때까지 그리 본다.

21. 세워 주고 봐야 제대로 본다.

22. 하나님도 사람을 눅혀 놓고 보면 작게 보이거나, 혹은 안 보인다고 하셨다.

23. 세워 놓고도 보고 눅혀 놓고도 보면, 어느 정도인지 분별한다.

24. <존재물과 사람>은 세워 놓고도 보고, 눅혀 놓고도 보아라. 그러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중심을 알고 판단하게 된다.

25. <섭리사를 악평하는 자>들은 백지장을 측면에서 보고는 “실 가닥같이 좁다. 무엇이 넓다고 하나?” 한다.

26. <큰 건물>도 측면에서 보면 좁고 작다. 정면에서 보면 10배, 20배 크다.

27. <볼펜>도 위에서 보면 한 점으로 보인다. 옆에서 보면 그 실체가 30배 크게 보인다.

28. <사기꾼이나 속이는 자, 악평자>들은 나쁘게 말하며 깎아내리고, 눅혀서 보이며 “이것 봐라. 작지 않냐.” 한다.

29. <이단>들은 약점은 숨기고, 거짓으로 좋은 점을 말한다.

30. “영은 없다. 천국은 없다. 세상에서 육신이 영원히 존재한다. 세상이 천국이다.” 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다. 이들은 지옥과 사망을 면치 못한다. <영>을 구원시키지 않고 육만 위해 사니, 그 행위대로 ‘영’이 안 만들어졌다. 고로 구원을 못 받는다.

31. <육>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그 영이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존재한다.

32. <영이 없다고 하고, 영의 세계를 불신하는 종교>는 다 ‘이단’이다.

33.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도 다 ‘이단’이다. 혹은 인정해도, “영의 세계는 없다. 영은 없다.” 하는 자는 다 ‘이단’이다.

34. 하나님은 인간을 ‘영’ 때문에 창조하셨다. <육>은 죽어서 끝나니, ‘영’을 중시하신다.

<2017년 12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건물이나 지형>도 크다고 해서 멋있고 좋은 것이 아니다. <입이나 코나 눈이나 금단의 열매>같이 크기가 적당해야 아름답고 멋있다.

2. <지형>이 크면 웅장하기는 하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건물도 크면 웅장함은 있는데 ‘아름답고 예쁜 것’이 사라지게 된다.

3. 어떤 자들은 ‘3.16 휴거기념관’을 보고 좀 작아서 아쉽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 위치에 크게 지었으면 마치 얼굴은 작는데 코가 크거나, 입이 크거나, 눈이 큰 사람과 같다. <3.16 휴거기념관>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구상하고 지었다. 크기도 좋다.” 하셨다. 사람이 많으니,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서 작게 보이는 것이다. 그 위치를 보고, 월명동 전체로 봤을 때는 작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10m만 더 길면, 마치 사슴 입이 하마 입같이 큰 것과 같아서 아주 보기 싫다.” 말씀하셨다. 지금보다 더 크면 2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어도, 산맥이 가려서 안 보이고 월명동 작품이 왜소하게 보이게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밀짚모자를 쓴 것같이 보인다. 또 16개 기둥을 18개로 만들면, ‘3.16 휴거기념관’이 안 된다. 건물을 ‘3’층으로 짓고, 정면의 기둥 8개, 좌우 4개씩 ‘16’개의 기둥으로 지어야 ‘3.16 휴거기념관’이다. 또한 <3.16 휴거기념관>은 ‘삼위(3)’의 처소이며, 알파와 오메가 장소다. <1>은 ‘알파’요, <6>은 ‘오메가’다.

4.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존재물은 완벽하다. 고로 거기에 더 덧붙일 것이 없다.

5. <만물>도 보면, 더 덧붙일 것이 없다.

6. <구조와 모양과 형상이 만들어진 곳>을 찾아서 살아야지, 자기가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다.

7. <월명동>은 기본적으로 ‘모양과 형상이 만들어진 곳’이니, 그 터전 위에 개발하고 만들어서 아름다운 것이다.

8. <사람>도 기본적으로 ‘골격’이 갖춰져 있어야 운동을 해서 만들어도 멋진 것이다.

9. <주체>를 보고 ‘그 대상이 생긴 모양과 형상’을 풀어야 한다.
10. <일반적인 것>보다 ‘작품’을 볼 때 더 스릴을 느낀다.
11. <길>도 ‘산책 코스’보다 ‘기암절벽 코스’를 갈 때 몸도 마음도 더 스릴을 느끼고, 운동도 더 많이 된다.
12. <산>도 ‘매끈한 코스’보다 ‘경사진 능선’을 탈 때 더 스릴을 느낀다.
13. <운동 기구>도 더 스릴 있는 기구가 있다. <스릴 있는 기구>는 ‘보통 것’을 만들 때보다 만들기도 더 어렵고 비싸다.
14. <월명동>에도 ‘스릴 코스, 스릴 작품’이 있다. <기암절벽 돌 조경>이다. 또 곳곳에 ‘스릴 코스’가 있다.
15. <월명동>에는 ‘산책 코스’도 있고 ‘스릴 코스’도 있다. <스릴 코스>는 ‘감람산의 경사진 능선’이다. <스릴>은 ‘험한 것’이 아니다. 경사와 각도로 따진다.
16. <천연 굴>도 ‘매끈한 곳’은 다니기 편해서 좋으나, ‘스릴’이 없다. <굴>이 좁았다 넓었다 하고, 경사지고, 여러 가지 모양과 형상이 있으면 ‘스릴 코스’다. 눈 구경도 스릴 있게 하고 몸도 마음도 스릴 있게 느꼈다면, 그 천연 굴이 더 ‘결작’이다.
17. <돌>도 각종 모양과 형상이 있으면, ‘모양과 형상이 없는 매끈한 것’보다 더 값이 나간다.
18. <위치>다. <생김새>다. <모양과 형상>이다.
19. <각종 존재물>도 생긴 대로 본다.
20. <사람>은 몸소 느껴야 좋아한다.
21. <운동할 때>도 몸소 매달리고, 잡고, 디디면서 해야 운동이 된다.
22. <월명동>도 ‘야심작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것’과 ‘중간 조경 길에서 보는 것’과 ‘운동장에서 보는 것’이 다 다르다. <운동장에서 보는 것>은 ‘지상영계 급’과 같고, <중간 조경 길에서 보는 것>은 ‘천국 급’과 같고, <야심작 절경 위에서 보는 것>은 ‘황금성 천국 급’과 같다.
23. <연회장 폭포수>도 위에서 보면 아찔하다. <스릴 지역>이다.
24. <스릴 지역>은 정신일도 하고, 몸짜 붙이고 다녀야 된다.
25. <사람>도 ‘스릴 인생’이 있고, ‘매끈한 인생’이 있다. 배우고, 각종 것을 스릴 있게 하면, ‘스릴 인생’이 된다.
26. <장소>도 ‘스릴 장소’가 있다.
27. <월명동>에는 ‘스릴 장소’가 많은데 사용을 못 한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많은 자가 오고 가는데, 그곳에는 종일 있어도 사람이 잘 안 다닌다. 그런 장소가 하나의 ‘스릴 장소’다. <스릴 장소>는 매끈해서 앉기 편하고, 조용하고, 사람이 잘 안 다니고, 기도와 대화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이다.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다.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해 주는 자>는 사랑해서 어떤 것을 어렵게 해 줘도, ‘받는 자’는 그 일이 안 맞으니 싫어한다.

2.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서 갈 길이 다르다.

3.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그것을 이뤄야 '그동안 해 오던 것'을 같이 이루기 때문이다.

4. <해 주는 자>는 큰 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받는 자'는 이미 해 오던 것이 있어서 작더라도 그것을 위한 것을 받아야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이루게 된다. 고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다. 천국이다.

5. 지난여름 방에서 기르는 여치가 있었다. 그때 너무 더워서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라고 물에 넣어 주니, 뛰어 도망가서 숨고 안 나왔다.내 생각으로는 '사람도 이 정도로 뜨거운데, 여치는 얼마나 뜨거울까?' 하고 너무 더우니 시원하라고 시간을 내서 해 준 것이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 여치에게는 날씨가 그리 덥지도 않고, 물이 체질에도 안 맞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깨달길 '나는 더울 때 목욕을 하면 시원해서 좋은데, 여치는 싫어하니 내 생각과 다르구나. 이와 같이 사람도 그러하다.' 했다. 이때 세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중 한 사람이 보낸 편지를 보니, 선생이 시킨 것을 못 한다는 편지였다. 선생은 그 사람에게 교회도 짓고 하니 목회를 맡기고 싶다고 했는데, 그는 신앙에 열중하여 주를 맞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 여치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알고,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했다. 성령도 말씀하시길, "일을 맡겨도 싫어하면 맡기지 말고, 먼저 의향을 묻고 맡겨라." 하셨다. 그중 또 한 사람은 몸이 아프다고 하기에 그러면 병원에 자리가 났으니 아예 거기서 근무하면서 치료도 하라고 말해 줬는데, 그리 아프지는 않다고 하며 생명 관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고로 그에게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했다. 여치로 보인 것이 정확했다.또 한 사람은 이미 일을 맡긴 자였는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에게는 "그래도 자꾸 해라." 하고, 앞으로 교정해 주기로 했다. 여치로 보인 계시가 세 사람에게 모두 맞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그 일이 그들에게 영광이니 좋아할 것이라고 하고 맡겼지만, 위치가 안 맞다." 하셨다. <위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일을 맡기려면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물어보고 의논해라. 그리고 일을 맡겼으면, 그의 달란트가 맞는지 보아라. 재능과 소질대로 맡겨라." 하셨다.

6. 모두 자기 느낌, 자기 입맛, 자기 환경, 자기 체질에 맞는 대로 가서 산다. 마치 사람들이 자기 체질에 맞는 데로 이동하며 사는 격이다.

7. 자기는 음식이 맛있다고 천 리 길을 가서 사 와서 대접해도, 안 먹는다고 한다. 이는 그 음식을 안 먹어 봐서 자기 체질에 안 맞기 때문이다.

8. <술을 잘 먹는 자들>이 '술'이 좋다고 하며 '술을 못 먹는 자'에게 대접하는 격이다. 그러면 술을 못 먹는 자가 좋다고 먹겠느냐. 자기는 아무리 좋아서 대접해도, 받는 자는 거부하며 정말 사리를 분별을 못 한다고 한다.

9. 하나님은 항상 합당하면 보여 주신다.

10. 자기에게는 극적으로 희열을 느끼고 흥분되는 일이라도 다른 자에게는 안 맞아서 '극약'과 같다. 사람마다 개성이 이같이 다르다.

11. 사람은 '겉'을 보고는 전혀 모른다. <그 사람의 맛과 체질과 생각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생긴 것'과 다르다.

12. 어떤 자는 '발효 음식'이 좋아서 천 리 길을 가서 사 먹고 오고, 어떤 자는 아예 '썩은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평생 안 먹는다.

13.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극'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미인이라도 평생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같은 개성으로는 인간의 뇌를 창조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뇌>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쪽으로만 돌아가면, 세상이 바로 없어져 버리고 망한다고 하셨다.

14. <개성>이 중함을 알아라. 모양과 형상까지 다 다르다.

15. <곤충>도 같은 종인데 성격이 다 다르다.

16. 모든 자들이 미인만 좋아하면, 그 사람을 두고 늘 싸움이 일어난다. 미인을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지, 안 좋아하는 자들은 안 좋아한다. 서로 상극이다. 자기가 봤을 때 그리 예뻐 보이는 것이지, 다른 자들은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 그리 예쁘게 안 보인다. 자기에겐 보화가 따로 있다.

17. 돌, 나무, 조각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각각 고른다. 자기 뇌 자체가 그러하니, '자기 체질'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고른다. 그러니 다른 것을 고른 자가 보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한다.

18. 하나님은 자기가 뇌를 형성해 놓은 대로 그것을 보고 좋아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자기 뇌를 '나무를 좋아하는 체질로 형성해 놓은 자'는 나무만 좋아서 심고, '돌을 좋아하는 체질로 형성해 놓은 자'는 돌만 사다 쌓고, '조각을 좋아하는 체질로 형성해 놓은 자'는 조각만 만들어 놓고 세운다.이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눈을 뜬 자는 다 좋아서 사다 꾸며 놓는다.

19. <꽃을 좋아하는 자>는 열매보다 '꽃'이 좋다고 하며 꽃구경을 가고, <열매를 좋아하는 자>는 꽃은 허무하다고 하며 꽃구경을 안 가고 가을에 '열매 구경'을 하러 간다.

20. <자기 뇌>를 개발하고 형성해 놓은 대로 생각하고 좋아한다.

21.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신'같이 섬기고 사랑하며 산다.

22.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좋아서 우상을 섬긴다. 몰라서다.세상에서 자기가 좋아 누리며 천국같이 살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죄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죄의 형벌'을 주신다.

23. 마치 신발이나 옷 사이즈가 5mm씩 크고 작게 수천 개의 차원으로 존재하듯 하나님은 각자 개성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맞춰 주시려고 천지 만물도 부족함 없이 다양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사람도 자기를 만든 대로, 자기 개성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신의 차원'에까지 오르게 창조하셨다.

24. 사람은 '자기 뇌와 생각'을 만들어 놓은 대로 좋아하며 산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싫으니, 다른 자가 볼 때는 좋은 것도 자기는 싫다고 안 한다.

25.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게 '자기 뇌와 생각'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없는 최고의 차원이다. 자기 개성대로 만들기다.

26. 처음에는 자기가 이런 집을 좋아해서 힘들어도 투자해서 집을 지었다. 그런데 몇 년 살다 보니, 싫어졌다. 고로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지으려고 했다. 이는 처음에는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그 차원대로 좋아한 것이다. 살다 보니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고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되어, 이전 것이 별로로 보이니 팔게 된 것이다.

27. 땅이나, 집이나, 물건이나 모두 처음에는 그리 좋아하다가 쓰다 보니 만족이 없어서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팔아서 새로 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한다. 이는 생각이 그 차원에 이르러서다. <사람>도 그러하다. 처음에는 영원히 좋아하며 살겠다고 하다가 만족이 없어진다. 이때는 '생각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동안 성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믿고 행하면 계속 차원이 높아지고, 차원이 높아진 대로 더 좋아하며 살게 된다.

28.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성자를 절대시하며 사니 '좋아하는 것'을 구하게 됐다. <월명동>을 보아라. 또 <성자가 주고 가신 것>을 보아라. 그 정도 차원의 것을 얻었다. 다만, 주셨어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도 있으니 경제적인 한계도 있다. 그러나 모두를 보고 주신 것이니, 감당한다.

29. 뇌 차원대로, 좋아하는 대로 구해서 얻은 것 중의 하나가 '낙타바위'다. 다른 자는 아예 생각도 못 한 것이다.

30. <소나무>도 지금 월명동에 있는 것들을 보아라. 늘 더 큰 것을 두고 기도하고 구했다. 결국 구하고 원하던 대로 됐다. 다만 기도하고 원해도,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신다.
31. 자기가 좋아해도 '높은 단계의 것'은 하루아침에 못 한다. <뇌 발달, 생각 발달>이 점점 되면서 '높은 차원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하게 된다.
32. <뇌 차원, 생각 차원>이 낮으면, 생각이 안 나서 얻지를 못하게 된다.
33. <자기 차원에서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은 자기만 좋아서 만족하니,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호응도도 낮다.
34. <모든 자들>이 보고 우러러볼 정도가 돼야 된다.
35. <사람의 가치>를 따질 때는 '미'로는 다 못 따진다. 그가 가진 마음, 생각, 인격, 갖춘 것 등이 다 포함돼야 된다.
-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대로 얻고 좋아서 만족한다.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대로 얻고 좋아서 써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안 되게 '뇌의 신경과 생각'을 모두 개성대로 정말 창조를 잘해 놓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매일 삼위께 천지 만물과 인생들을 정말 잘 창조하셨다고 감사드리며 칭송했다.
3.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인생들이 살도록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가르치고 구원시키신다.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4.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개성대로, 질서대로 살면 다 천국이 된다.
5. <월명동>은 '하나님 차원'에서 선택하여 주셨다.
6. 하나님은 당세 역사를 펴실 때 '천 년'동안 보고 쓸 것을 주시기도 하신다. 고로 그 센터에서 아예 큰 것으로 주신다.
7. 자기 차원대로 받으니, 차원을 높여라.
8. <천국>도 땅에서 자기를 만든 차원대로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9. 하나님 주관권에서는 특히 '영적'으로 받고 누린다. 그러나 차원이 낮은 자는 '영적인 높은 차원의 것'을 받고 누려도 모르고, '육의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
10. <자체 그 주관권 안>에서 차원을 높이는 쉽다.
11. <주관권을 벗어나는 차원>을 높이기 어렵다.
12. 하나님은 주관권을 벗어나서 차원을 높이시고, 그 주관권 안에서 또 차원을 높이시며 역사해 오셨다. 먼저 '구약 1단계 차원'이다. 구약 주관권 안에서 4000년 동안 차원을 높이시며 역사하셨다. 그리고 '신약 2단계 차원'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어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서 차원을 높이셨다. 그 터전 위에 2000년 동안 신약 주관권 안에서 차원을 높이시며 역사하셨다. 그다음 다시 메시아를 보내시어 신약 주관권을 벗어나 '성약 신부 시대, 최고 상차원'으로 차원

을 높이셨다. 이 주관권 안에서 천 년 동안 계속 차원을 높이며 역사가 커 나간다. 이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차원’을 높이셨다. 최고 ‘극’으로 높이셨다. <신부, 사랑의 대상>에서 더 높일 수는 없다. 남녀가 사랑하고 일체 되어 살면 더 이상은 높일 수 없는 것이다.

13. 하나님은 최고로 차원을 높여 삼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어 6000년간 구원역사를 펴 오셨다. 그리고 그 목적을 마지막 재림 역사 때 이루셨다.

14. <최고 천국>은 ‘황금성 천국’이다.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룬 자들>이 사는 ‘황금성 신부들 세계’다.

15.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들이 ‘하나님적 사고와 생각’으로 차원을 높이고 ‘삼위의 모양과 형상’으로 차원을 높이게 하시어, 삼위의 사랑을 지구만큼, 천주만큼 다 받게 하신다.

16. 하나님은 휴거된 자들이 ‘완전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마음 놓고 실컷 사랑해도 다 감당할 수 있게 계속 가르치시고 만드신다. <휴거된 자들의 영>이 완전히 ‘미’가 갖춰져서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흠 없이 100% 완전하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만들어 가신다.

17. <사람>도 자기 차원만큼 깨닫고 행하니, 차원이 높은 자는 절대 변함없이 행해 간다.

18.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을 때 만족하니, 자꾸 자기를 만든다.

19. <월명동 환경>도 계속 만족하게 만든다. 그러니 모두 보고 마치 애인같이 좋아서 쓴다.

20. 하나님은 ‘천국’도 사람들이 갖추는 대로 자꾸 창조하신다.

21. <부모>도 자녀가 크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자꾸 주면서 자녀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게 한다.

22. 옛날에 1~2명이 전도됐을 때는 ‘한 평 되는 방’을 구하고서 놀라며 기뻐했다. 없다가 생기니 기적이라고 하며 매일 감사했다. 1년 정도 쓰니, 좁아서 사람이 더 이상 못 들어왔다. 고로 늘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 후 삼 선교로 옮겼다. 그곳은 ‘3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었다. 큰 곳으로 옮기니 “기적이다. 더 이상 없다. 만족하다.” 했다. 그러니 다른 곳은 더 찾지도 않았다. 그 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오니 ‘건물 전세’를 얻고 만족해했다. 이같이 점점 차원을 높여 역사를 펴 왔다. 지금은 최고로 차원을 높여서 ‘교회 건물’을 산다. 모두 인원대로 교회도 자꾸 차원을 높여야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리 잡은 월명동에 ‘하나님의 궁, 시대 자연성전’을 건축하였다. 위치와 크기와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이 최고로 차원이 높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위치와 모양과 형상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의 신부’를 상징하여 제2창조를 해 놓으셨다.

23. <자연성전>은 마치 ‘성약역사’가 ‘구시대 자녀급 역사’와 다르듯이 표가 나게 다르다.

24. 세상에 기암절벽이나 해변가 비경 등 명승지는 많아도, 월명동같이 ‘하나님의 뜻과 사연’을 가지거나 그 같은 ‘위치’를 가진 곳은 없다. <위치>가 그리 중요하다. 하나님은 위치대로 섭리하신다.

25. <사람 몸>도 다 예쁘다. 그중에 최고 사랑의 핵심 지체는 한 군데 있다. 지구를 사람 몸으로 볼 때 ‘월명동 자리’가 그 핵심 지체에 해당된다. 또 <사람의 머리>는 ‘하나’다. 지구를 한 사람으로 볼 때, 머리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월명동 자리’이다.

26. 세상에 원시인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보면, 자기네 땅이 ‘태양과 같은 곳’이라고 하며 그 위치에 ‘우상을 섬기는 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모두 하나님 앞에 위반되니, 육도 영도 심판받고 끝난다.

27. 자기가 좋아서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보시고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 법을 정하셨다.

28. <우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심판하신다. 이는 ‘천법 제1조 1항’이다.

29. <절대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가 보낸 자를 믿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함으로 그 면으로 차원을 높이고,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을 중심하면 육신에 의해 ‘영과 혼’이 지배되고, <영과 혼>을 중심하면 영과 혼에 의해 ‘육신’이 지배된다.

2. <마음과 생각>을 중심하면 마음과 생각에 의해 ‘육신의 행위’가 좌우되고, <육>을 중심하면 육에 의해 ‘마음과 생각’이 좌우된다.

3. <중심하는 쪽>에 의해 좌우되고, 지배된다.

4. <하루>를 살아도 ‘중심하는 쪽’으로 그것을 하게 되고 시간을 보낸다. 고로 나머지는 그 주변에 속한 일이 된다.

5. 가령 하루를 두고 사는데 ‘관광’을 중심했다 하자. 그러면 그날은 자기 시간도,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도 ‘관광’으로 다 쓰게 된다. 그러니 ‘관광에 대한 것’만 얻게 된다.이같이 ‘육 중심’이나, ‘영 중심’이나에 따라 육에 속한 자가 되거나, 영에 속한 자가 된다. 또 ‘자기중심’이나, ‘주 중심’이나에 따라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거나, 주께 속한 자가 된다.

6. 자기가 ‘무엇을 중심했느냐’에 따라 얻는다.

7. <영적인 것>을 중심했으면, ‘영에 속한 것’을 얻는다.

8. <육 중심>이나, <혼 중심>이나, <영 중심>이나에 따라 행한 대로 얻는다.

9. 새벽에도 ‘잠 중심’이나, ‘기도 중심’이나에 따라 육에 속한 자가 되거나, 영에 속한 자가 된다. 또 ‘계시 중심’이나, ‘말씀 중심’이나에 따라 자기가 중심한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는다.

10. <육>이 행한 대로 ‘혼과 영’도 그 대상이 되어 행함이 달라진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중심하지 않고 ‘자기를 중심하는 자’는 돌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잘린 것과 같다.

12. <주를 중심하지 않고 한 것>은 ‘주의 생각’과 다르니 다 무너뜨린다.

13. <자기중심으로 행한 자>는 하나님도 주도 ‘하늘 법’에 따라 ‘불법을 행한 자’로 보고 대하신다. 고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게서 물러가라.” 하셨다.

14.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중심하지 않고 행한 것>은 ‘불법’이다. 사탄이 개입해서 한 것이니,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를 펴지 않으신다.자기의 육적인 생각과 행위에 속한 고로, 모두 헛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 주’를 중심하여 하나님 주권권 안에서 행하면, 역사를 펴신다.

15. <자기를 중심하여 행하는 자>는 무지해서 모르고, 자기 습관이 되어 잘 모른다. 모르고 행했어도 ‘뜻’이 아니니, 하나님은 모두 헛어 버리신다.

16. <숫자 계산을 할 때>도 종일 했어도 ‘한 자’를 잘못 계산하면 다 틀린 것이다. 가령 한 문제의 답이 ‘1178’이었다

- 하자. 하루 종일 빼고 더하고 했는데 그중에 ‘한 자’를 잘못 계산해서 ‘1168’이 나왔다. 그러면 다 틀린 것이다.
17. 다른 것을 다 잘했어도, 중심이 ‘주의 뜻’이 아니면 다 잘못된 것이다.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행했기 때문이다.
18. 어떤 자는 ‘한 사람’을 중심해서 신앙이 자랐고, 어떤 자는 ‘주’를 중심하고 ‘주와 일체 된 자’를 중심해서 신앙이 자랐다 하자. 똑같이 신앙이 자랐어도 ‘주’를 중심하고 ‘주와 일체 된 자’를 중심해서 자란 자만 ‘주를 중심한 것’이다. <주>만 ‘머리’가 된다. 고로 <주와 붙은 자들>만 ‘주를 중심한 자’다.
19. 똑같이 작품을 만들었어도 ‘주가 시켜서 만든 것’이 선정되고, 나머지는 선정이 안 된다.
20. 하나님은 절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헐고 안 받으신다. 거기에는 ‘사탄’이 개입됐기 때문이다.
21. 인물이나 인격을 갖춘 자라도, 어떤 간판이 있는 자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주를 중심하여 한 것’만 인정한다. <하나님과 주를 중심하여 한 것>만 그 사연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이다.
22. <월명동 돌들>도 ‘하나님과 주를 중심해서 택한 것’은 그 돌이 작아도 사연이 있으니 쌓았다.이같이 ‘하나님과 주를 중심한 것’만 세우고 인정한다. 자기나, 선배나, 친구나, 어떤 사람을 중심해서 한 것은 모두 헐어 버린다.
23. <자기나 다른 사람을 중심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두고 구상한 땅’에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격이다. 그러니 헐지 않으시겠느냐.
24. 자기 마음으로만 구원받고 휴거되면 뭐하냐.자기 마음대로 하면, 구원도 휴거도 안 돼 있다. 자기 인식으로만 휴거됐다고 생각할 뿐이다.
25. <집>을 잘 지었다고 자랑하고 잔치하며 즐겼다. 알고 보니 그곳은 정부에서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한 땅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잘 지었어도 헐어야 된다. 본인이 기쁨으로 짓고, 본인이 슬픔으로 헐어야 된다. 자기중심으로 해서다. 이같이 ‘자기를 중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모두 헐어 없애고 다시 ‘하나님과 주’를 중심해서 행해야 된다. 그 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구상도 주시고, 말씀도 주신다. 이를 지킨 자만 구원과 휴거를 이룬다.
26. <중심>이 얼마나 중한지 알아라.<중심>이 얼마나 생명과 같은 것인지 알아라.
27. <사울 왕>도 ‘자기중심’으로 했다. 고로 때가 되니 심판받고 망했다.
28. <다윗>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다.
29. <주>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중심하여 일체 된 것’과 같이 모두 그리해야 된다.
30. <하나님의 뜻과 구상대로 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 나머지는 소각된다.
31. <자기를 중심한 것>은 그것이 일점일획일지라도 하나님과 주께 용납이 안 된다. <자기>는 ‘머리’가 안 된다.<지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주를 머리 삼고 행한 것만 영원하다.
32. <주를 중심하지 않은 것>은 글씨를 틀리게 쓴 것과 같아서 누구든지 그 글로는 인정을 안 하듯 인정하지 않는다.
33. <주를 중심하지 않은 것>은 마치 금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자기 생각을 중심하거나 타인의 말을 듣고서 흙벽돌을 넣어 쌓는 격이다.<금>으로 집을 짓는데, 흙벽돌을 넣으면 빼내지 않겠느냐.
34.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게 하신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 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헐어 버리신다.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통해 6000년간 그 뜻과 구

상을 이루어 오셨다.

35.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100% 자료를 다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어 ‘뜻’을 이루신다. 구원도 휴거도 그리하신다.
36. <월명동 돌 조경>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그 구상대로 주를 통해 어떤 돌을 사 오라고 하시면, 그것을 사다가 쌓았다. 이같이 시대 말씀도, 역사의 구상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과 구상대로 각자 책임을 행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시대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하신다.
37. <자기 뜻대로 한 자>는 휴거도 자기 인식으로만 됐다고 생각할 뿐이다. 마치 복권을 샀는데, 자기 인식으로만 됐다고 생각하고 당첨을 기다리는 격이다. 이미 다른 자가 당첨되어 그 돈을 타서 집도 짓고 환경도 개발해서 살고 있다.
38. <월명동 전설>을 듣고 “내가 그 전설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자들이 많았다. 점을 쳐 보니 “네가 된다.” 하여, 빛을 내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며 즐겼다. 모두 자기가 된다 생각하고 복권을 사 놓고 기다리는 자와 같았다.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 뽑으셨다. 그에게 땅을 주고, 개발하여 쓰고 있다. 빛을 내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던 자들은 자기 집이 다 넘어가서 빈 몸으로 살아가며 “왜 이리됐지?” 한다. 거짓된 자의 말을 듣고, ‘자기와 자기 망상’이 중심이 되어 행하니 그리됐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월명동 전설>은 ‘민족과 세계의 전설’의 축소판이다.” 하셨다. 고로 <월명동 전설>을 이룬 자>가 ‘민족과 세계의 전설을 이룬 자’다. 그가 ‘성경을 이룬 자’다.
3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중심>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맡기신 일을 하면서 항상 물어보아라. 매일 물어보며 행하여라.
40. 옛것을 장사 지내라. 안 하면, 모두 헛고 집 지을 장소도 안 준다. 그러면 ‘자기 신앙의 집, 휴거의 집’없이 살아야 된다.
41. <하나님과 주를 중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주의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자다. 하나님과 주께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 아무 희망이 없게 된다.
42. <용의 머리>가 ‘용의 중심’이다. <몸>은 ‘지체’다.
43. <용>이 되려면, 자기 머리를 돌감나무 자르듯 잘라 버리고 ‘용의 머리’에 접붙여야 된다.
44. <용의 머리를 차지한 자>가 ‘용의 몸’이 된다.
45. 자기 머리,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중심, 자기주관을 잘라 버리고 ‘주의 머리’에 붙어 살아야 ‘주의 몸’이 된다.
-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미친 자>라도 하면 되고, <왕>이라도 안 하면 안 된다.
 2.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비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함이다.
 3. 밥을 처음 해도 하기만 하면, 못해도 죽이라도 된다. 또 해 보면, 밥이 잘된다.
 4. <자꾸 해 보기>다. 10번도 해 보고, 100번도 해 보고, 700번도 해 보기다. 어떤 것은 1000번 하니 됐다.
 5. <긴 과정>도 ‘기쁨’이다.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도 ‘기쁨의 기간’이다.
 6. 하면, 올라간다.

7. <땅에서 뛰는 단계>가 끝나면, '날아다니는 단계'다. 날다가 우주가 끝나면, '영의 세계, 영원한 세상'이다.하나님은 모두가 이 단계까지 오기를 기다리신다. 인간으로서 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 최고의 장소'다.
8. <안 하는 자들>은 '땅'에 붙어살고, 계속 땅속으로 들어간다.그곳은 '어둠과 사망의 세계'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죄악과 고통의 세계'다. 의를 행하지 않은 자들의 영이 사는 '영원한 지옥 세계'다.
9.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자꾸 행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한 것'보다 낫다. 자꾸 연습하기다.그리고 나서 '잘한 것'을 세우고 만들기다.
10. <글>도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쓰면, 결국 멋있게 써진다.
11. <조약돌>도 원하는 대로 계속 갈면, 결국 그 모양이 된다. 수고하면, 고생돼도 '자기 소원과 원하던 것'을 이룬다. <수고 없는 소원>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과 같다.
12. <만사의 모든 것>도 만드는 대로 된다. 다만 좋게 만드는 만큼 힘은 든다.
13. <마음>은 하늘에 닿도록 솟아도, 행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14. <행한 자>는 '제2창조자'다. '능력자'다. 고로 '더 위의 차원'에서 존재한다.
15. <더 좋게 행하기>다. <더 좋게 생각하기>다.그러면 더 기쁘고, 더 편하게 살게 된다.
16. <때>에 맞춰서 해야 된다. <때가 왔다는 것>은 '그 존재가 왔다는 것'이다. 곧 기다리는 사람, 혹은 바라던 것이 왔다는 것이다.
17. <때>는 머무르지 못하고 '바라던 것, 원하던 것'과 가 버리니, 때를 따라가면서 이뤄야 된다.
18. <때>가 오기까지는 마치 작은 솔 씨가 떨어져 거목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듯 '오랜 기간'이 걸린다. 고로, 오랜 후에 오는 때를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그때를 위해 행하며 준비하는 것이다. <오는 때>를 위해 삶 속에서 잊지 않게 때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19.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 속의 작은 때'마다 준비하고 만들고 행하면 된다.가령 운동도 '크게 하는 때'는 그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오지만, '작은 때'는 자기 삶 속에서 순간마다 오니 일을 하다가도 방에서 하거나, 밖에 나가서 하면 된다.이와 같이 '자기가 생활에서 원하는 작은 것이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자기가 '때'를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자기 때'와 다르다. 고로 <큰 것>은 '하나님의 때'가 와야 이루어진다.<작은 것>은 자기가 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성령과 주와 함께 해야 된다.
20.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행하니, 자기를 '행함의 프로 선수'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잘 행한다.
21. <운동을 배운 자>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니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시 행한다. 이같이 <행하는 데 있어서 배우고, 늘 행하여 길이 든 자들>은 일이 오면 즉시 행한다. <배웠어도 행하지 않았던 자들>은 자기가 잘 못 하니, 일이 와도 엄두를 못 낸다.
22. <잘하기 전>까지 자꾸 '행해 보기'다.
23. <일>도 운동 배우듯 배우는 것이다. <배운 자>는 바로 한다.
24. 해 버릇하면, 쉽다. 고로 바로 한다.

25. <배울 때>도 처음에는 아장걸음을 걷다가, 그다음에는 제대로 걷고, 그다음에는 뛰고 달리고, 그다음에는 날아다니는 것이다. 이같이 차원을 높여서 행하여라. <신앙의 일>도, <생활의 일>도 그러하다. <차원 높은 일>을 구하고, 삼위와 주와 함께 해라.

26. 어떤 자는 한 번 하면 잘하는데 ‘시작’을 못 한다. 고로 <시작을 잘하는 자>의 손을 빌려라. 그리고 나서 시동 걸고 하면 된다.<시작도 잘하고 시동도 잘 거는데, 끝까지 못 하는 자>는 ‘끝까지 잘하는 자’와 함께 해라. 시소같이 서로 올려 주고 내려 주기다.

27. <일>은 그 일을 할 때 아예 해야 된다. 급하다고 대충 하면,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할 때 처음에 할 때와 같이 또 해야 되니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구상과 생각’이 잘 떠오른다. 하나하나 음식을 씹고 삼키듯 그 일을 할 때 아예 해서 넘겨야 된다. 처음 음식을 씹을 때보다 되새김질할 때가 쉽다.

28. <전체>를 보고 ‘부분의 것’도 해야 밸런스가 맞다. <부분>에만 빠져서 하면, 전체를 볼 때 ‘앞뒤, 좌우의 균형’이 안 맞아서 한쪽이 튀어나왔든지 들어갔든지, 높이 솟든지 내려앉든지 하게 된다.

29. <조각가>는 ‘전체’를 보며 균형을 맞춰야 된다. <신앙의 일>도 그러하다. 어떤 일 하나만 한다고 ‘하던 많은 일들’을 소홀히 하면, ‘신앙의 적자’가 난다. 찬양한다고 그것만 하면 기도가 떨어지고, 전도한다고 관리를 안 하면 생명이 전도돼도 죽어 나가게 된다. 시간이 빠듯해도 다 해야 된다. <하던 일>은 모두 차원을 높여서 해야, ‘삶에 해당되는 매출’이 높아진다. 고로 ‘신앙의 흑자’가 난다. ◎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많은 일>에는 ‘많은 시간’이 ‘자본’이다.

2. <큰 것>은 ‘큰 시간’을 투자해서 하고, <작은 것>은 반드시 ‘작은 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작은 일>에 ‘큰 시간’을 여유 있게 쓰면, ‘큰일, 큰 기회’가 왔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된다. 고로 성공할 것도 실패하게 된다. <푼돈>을 모아서 ‘큰 것’을 사듯 ‘틈 시간’을 모아서 ‘큰 것’을 행하여 얻어라.

3. 하루를 두고 때마다 ‘틈 시간’을 잡아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어느 때는 잠언도 썼다. 시간은 사라졌으나, 그림이 되어 남고, 글이 되어 남았다. 영원히 남게 된다. <실천>하여 ‘실체’를 남기기다. 보여 주기다. 삼위와 주와 기쁨의 잔치 하기다.

4. <틈 시간 1분>도 안 놓치고 ‘몸 운동’을 했더니, 정한 운동 시간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힘들지도 않았다.<1분, 2분, 3분>이 ‘틈 시간’이다. 열 번 하면, ‘계획한 큰 시간’이 된다.

5. <1분> 가지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잠언 한 개도 받는다. <틈틈이 해 놓은 것>으로 섭리사 행사 때 ‘삼위의 말씀 잔치’를 한다.

6. 새벽에 말씀을 쓰다가 ‘한두 개씩’ 좋은 것을 모아서 보내면, 그것이 ‘말씀의 진수성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된다. 삼위도 한 번에 많이 안 주신다. 어느 때는 많은 말씀 중에 찾아보면 작품 같은 것이 ‘한두 개’가 들어 있다. 그것을 빼서 잔치 음식을 만들듯 섭리사 행사 때의 ‘말씀 잔치’를 예비한다.

7. <큰일>은 단순하게 못 한다. 긴긴 시간 속에 만든다.시장에 ‘평소 먹을 음식’을 사러 갔다가 ‘별미 음식 재료’가 있으면 하나씩 사다 모아 둔다. 그러다 잔칫날이 되면, 평소에 사 둔 것을 가지고 별미 음식을 만들어 잔치한다. <잠언 잔치, 말씀 잔치>도 그러하다.

8. <잠언 한 개>는 ‘금덩이 하나’다. <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이다. 그러니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얻어 본 자만 안다.잠언 그대로 행하면, 자기도 ‘금덩이’ 같은 ‘실체’를 얻는다.어느 날은 잠언을 받고 그대로

행해서 ‘실체’를 얻었다. 모두 보고 감탄한 것들이다. <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면, 얻는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말씀>을 ‘글’로 볼 때는 평범한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지혜와 성공의 비법’이 다 들어 있다. <전능자가 하신 말씀>이니 그대로 행해 보아라. 그러면 ‘실체’를 얻게 된다. 모두 깨달아야 한다.

10. <한 잠언>에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말씀’이 들어 있다. ‘자기가 깨닫고 할 일’도 들어 있다. <한 잠언>으로 수백 가지 ‘행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기도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와의 ‘한마디’ 말 속에 ‘천 마디’가 들어 있다.” 하셨다.

11. 하나님은 대답하실 때도 인간이 ‘천 마디’로 물으면, ‘한마디’로 하신다. 가령 “안 될 때는 방법을 달리해라.” 말씀하시면, 그 한마디 말씀에 수만 가지가 다 해당된다.

12. 몰라서 망하고, 실패하고, 다치고, 죽기도 하고, 지옥에도 간다. 알면 성공이다. 알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호랑이도 이기고, 죽음에서도 살고, 주도 만나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만나고, 가난한 자가 잘살게 되고, 사랑도 이루고, 숨긴 보화도 찾는다. 수만 가지를 얻는다. <5만 잠언> 속에 다 들어 있다. <잠언>은 ‘삼위의 위대한 말씀’이다.

13. <주를 아는 자>는 새 시대에 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니, ‘육의 세계와 영원한 영의 세계의 위치’가 뒤바뀌어 산다. 그 가치는 지구보다 더 크다. <모르는 기성>과 <시대 주의 행하심을 아는 자>의 차이를 거리로 따지면 ‘1광년’정도 될 것이다. <육>만 보면 표가 안 나니, 한 시대를 살아가도 모른다.

14. <자기 소원을 이룬 자>와 <이루지 못한 자>도 그냥 보면 모른다.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때 안다. 하늘나라에 가 보면, 그때 안다.

15. <한 주관권>을 오르는 데 ‘4000년’이 걸리고, ‘2000년’이 걸린다. 이것이 그대로 ‘영의 세계’에 존재한다. 크게 쪼개서 보면 ‘구약 영계, 신약 영계, 성약 영계’ 세 개의 영계다. 한 주관권을 오르는 데 구약에서는 4000년이 걸리고, 신약에서는 2000년이 걸린다. <육계>에서 보면 비슷하다. 그러나 <영계>에서는 ‘그 거리의 차이와 가치의 차이’가 크고도 크다.

16. 세상에서 보면, 잘사는 자나 못사는 자나 누구든지 ‘잘사는 단계’까지 오르려면 한 기간이 걸린다. 거리의 차이가 없다.

17. 잘살기까지는 10년, 20년, 30년이 걸려 오른다. <섭리사>도 잘살기까지 ‘40년’이 걸려서 올랐다. 자기가 ‘섭리사’에 올라탔으면, ‘40년이 걸려 오른 곳’까지 오르게 된다.

18. <육의 세계>에서도 시대를 두고 ‘한 단계’를 오르면,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오르게 된다.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건너뛴 것이다.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온전히 건너뛰면, <신약 2000년 차원>에서 ‘새 시대 성약 차원’으로 오른 자가 된다. <육의 세계>에서 이룬 것과 같이 ‘영의 세계’에서도 그리 차이가 있다. 고로 ‘오르기’다.

19. <비경의 지역이나 산>도 ‘밑에서 보는 것’과 ‘올라서 보는 것’은 다르다. 이같이 ‘구약에서 보는 것’과 ‘신약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신약에서 보는 것’과 ‘성약에서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

20. <성약>은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섭리하시고 열매 맺는 ‘마지막 최고 차원의 역사’다. 구약, 신약, 성약에서 행한 대로 각각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갚아 주신다. <성약>은 그 차원이 아주 드높다. <영의 세계>에서도 더 이상 없는 ‘황금성 천국’으로 갚아 주신다.

21.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마치 ‘기성 시대 신앙생활’과 같았다. 그 신앙도, 그 환경도 행한 대로다. 새 시대 성자를 맞고, 하나님과 성령을 맞아 하늘의 구상대로 개발하니, 구시대 때와 얼마나 다르냐. <황금 보화, 천국 세계>다. 이같이 ‘시대 차이’가 있다. 육계에서도 차이가 있듯,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영이나 혼으로 가서 보아라. 꿈에서도 축소

해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두고 생각해 보아라.

22. <사람>도 ‘최고 좋은 것’을 기어이 만들고야 한다. 월명동을 만들 듯 만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같이 쓴다. <하나님>도 끝에 가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이 최고 좋은 ‘황금성 천국’을 만드시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를 만드시어 정녕코 휴거로 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사신다. <사람>도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기어이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하시겠느냐. 최고로 하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안 하시겠느냐. <월명동 폭포수>를 계획하고 돌까지 사다 놓았는데, 그 목적을 안 이루겠느냐. 20년 전에 월명동 폭포수를 구상하고 기어이 하고야 말았다. 이제 모두 평생 쓴다.

23. <성약역사>는 ‘끝 날, 끝 역사’다. 고로 하나님은 이때 해당되는 일을 정녕코 행하신다.

24. <성자>도 가시면서 ‘끝에서 줄 것’을 다 주시고 가셨다. 그 후에 주실 것은 성령께 맡겨 놓고 가셨으니, 조건을 세우고 때가 되면 그때마다 계속 주신다. 성령은 말씀하시길 “<주는 것>은 ‘뺏는 것’보다 쉬우니, 불가능이 없다.” 하셨다. 지금은 ‘주시는 시대’다.

25. 지금은 필요 없어도, 주시면 받아라. 가다 보면 필요하다. 그때가 되면 없으니, 주실 때 받아라. 지금 안 받으면, 후에 다시 때가 돼야 주신다. 들고 가기 어려우면 짊어지고서라도 가면 되니, 받아라. 가다 보면 물도 없고 험한 길이 나온다.

26. 어떤 것은 지금 받아서 천 년 동안 쓴다. 시대가 바뀌면, 그때는 없으니 못 준다. 여름철에 그리 소낙비가 오고 홍수가 났어도, 때가 지나면 비 한 방울 없다. 지금 하나가 있어도, 또 받아라. 가다 보면 다 떨어지니, 앞날을 보고 주는 것이다. 그때가 오면, 주신 자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귀히 써라.

27. 항상 ‘주신 자’께 영광과 사랑을 돌려라.

28. 늘 ‘황금성 천국’을 생각해라.

29. <땅의 것>은 ‘육신이 살 때까지’다. <영의 세상>이 되면, ‘영’을 보고 대하며 사니 자기가 땅에서 ‘자기 영’을 만들어 놓은 대로 보람차다.

30. 늘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귀히 보며 기뻐 감사하여라.

31. <시대 생명들>은 ‘황금 덩이’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단 하나뿐인 생명’이다. 고로 영원히 존재하도록 ‘관리’다.

32.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천국도, 지상 세계도 만드셨다. <생명>이 없으면 ‘만물’뿐이니, 하나의 정원에 불과하다.

33.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 모든 만물도, 보화도 주셨다. 그 영들을 위해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셨다. <영>들이 없으면, 황금성 천국도 ‘빈 곳’이 되고, 이 세상도 ‘빈 세상, 빈 지구’가 된다. 고로 모두 ‘생명’을 위해 행하고 쓰고 얻기다.

34. <최종 목적>은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사랑하기’다. ‘휴거의 삶’이다. ‘주와 일체 된 삶’이다. ‘선의 세계, 평화의 세계, 화평의 세계, 참의 세계, 해됨과 상함이 없는 세계, 전쟁과 미움이 없는 세계’다. <이뤄야 할 것>을 뺏기지 않도록 간구하여라.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이니 ‘땅’에서 풀어야 땅에서도 이뤄지고 하늘에서도 이뤄진다. <땅>에서 자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그로 인해 ‘실체 영’이 형성되어 육의 삶이 끝나고도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산다.

36. <소경>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지팡이’가 운동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종일 찾듯 자기가

‘구하고 찾는 것’이 있으면 찾고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

37. 자기가 원하는 형상석과 수석을 찾을 때는 완전히 방을 닦듯이 그 지역을 빠짐없이 다니며 찾아야 된다. 이같이 <자기가 구하고 찾는 것>도 그 정도로 노력하고 도전하면서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행해야 얻게 된다.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찾고 얻게 된다.

38. <귀한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라. 바다에 빠트린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과 같이 어렵다. <전능자의 것>이니,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도 허락하셔야 찾는다.

39. <주인>이 아니면, 봐도 모르고 필요성도 안 느낀다. <소원하고 바라는 자>에게만 ‘보화’다. <시대>도 그러하고, <주 보화>도 그러하고, <황금성 천국, 보화의 세계>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찾고 귀히 아는 자>에게만 ‘보화’다.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자극적인 말보다 진실하게 해라.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한다.

2. <성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다.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해 역사하셨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어느 시대든지 ‘육’을 쓰고 나타나니, 그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행하는 일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고로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4.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끝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고로 하나님은 끝까지 정녕코 하신다. <사탄>은 ‘한계의 존재’다. 고로 끝까지 못 한다.

5. <인간>은 ‘하나님 사랑의 주인’이다. <영원한 사랑을 이루는 열쇠>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게 있다.

6.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존재자’이시라 정녕코 이루신다.

7.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도, 절대 제대로 알아야 된다.모르면, 절대 안 된다.

8. 성령님도 묻는 것이 맞으면, 대답하신다. 마치 기계의 번호가 맞으면 열리는 것과 같다. 자기가 묻는 것이 맞을 때 성령님과 대화가 된다.<대화>는 ‘차원이 높아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사람>도 ‘대화’하면 가까워진다. 이같이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9.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사람과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라.

10. <목적지를 간 자>가 ‘더 잘한 자’다.

11. <금식을 하면서도 목적지까지 못 간 자>는 ‘금식을 안 하고 목적지까지 간 자’만 못하다.

12.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보다 못한 것>이 공존한다. 이를 깨닫고 분별해라.

13. <온전한 구상>과 <온전하지 않은 구상>이 공존한다.<온전한 것>은 ‘삼위의 구상과 생각’이요, <온전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구상과 생각들’이다. 고로 무엇이 온전한지 재 보고 분별해라.

14. <사탄>으로 인해 ‘악’이 생기게 되면서 인간은 ‘선’과 ‘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왔다.

15. <선>은 선택하고, <악>은 버려야 된다. <자기 죄>와 <섭리사 내부의 죄>는 버리고 청산해야 된다. 악평자나 세상

의 악한 자들은 예정되어 없어진다. 그러나 자기 죄, 섭리사 내부의 죄가 있으면, 자꾸 사탄이 온다. 늘 자기 주관의 생각을 없애고, 죄를 회개하여 청산해야 된다.

16. <자기 개인>도 죄가 있으면 사탄이 자꾸 온다. 썩으면, 파리가 온다.

17. <육의 세계>에서는 ‘보이는 유전자’로 생명을 탄생시키고,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의 에너지’로 영들을 탄생시킨다. <사탄>은 ‘악의 에너지’로 자기 것을 만든다. <악의 에너지>로 만들면, ‘사탄의 것’이 된다.

18. <악>은 ‘악’을 만들고, <선>은 ‘선’을 만든다.

19. <악>은 ‘악의 에너지’로 만들고, <선>은 ‘선의 에너지’로 만든다. 모두 ‘에너지’로 만든다.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다. 비유를 들어 보자. 공기 중에는 ‘수분’이 있는데,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수분이 ‘찬 공기’와 만나 열면서 ‘눈’으로 변한다. <수분>이 ‘찬 공기’와 만나 ‘눈’이 만들어지듯, 영에 속한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 에너지, 선의 에너지’와 만나면 ‘영’이 만들어진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보자. 사탕수수 줄기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뜨거운 불’에 끓여서 계속 졸이면, ‘설탕 덩이’가 만들어진다. <사탕수수 물>이 ‘열에너지’로 인해 ‘설탕 덩이’가 되듯, ‘하나님의 에너지’로 인해 ‘인간의 영’이 탄생된다.

20. <일을 할 때>는 ‘한 가지’만 보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수십 가지’를 보고 하신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같이 보고 해라. 할 때 하여라.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한국말>은 ‘단어’가 많아서 조금만 잘못 표현하면 다른 표현이 되어 오해를 하거나 싫어한다. 세상의 어떤 언어든지 잘못 표현하면 다른 표현이 되어 오해하게 된다. 한국말은 단어가 많으니, 더 그러하다는 것이다.

2. <사람의 행동>은 ‘수만 가지 종류’이다. 잘못 행동하면 다른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억울한 말도 듣게 되고, 억울하게 욕에 갇히기도 한다.

3. <글>도 그러하다. 자기는 <글>을 제대로 썼지만, 보는 자는 ‘글의 모양’을 달리 본다. 정확히 ‘정자체’로 써야 보는 자가 제대로 알아본다.

4. 본인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아닌데 <말 표현, 글 표현, 행동 표현>을 제대로 못 하면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하기도 한다.

5. <말, 글, 행동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해 사랑한다는 오해도 받고 미워한다는 오해도 받고, 좋아한다는 오해도 받고 싫어한다는 오해도 받고, 성의 없다는 오해도 받고 강하다는 오해도 받고,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고로 <말 표현>도, <글 표현>도, <행동 표현>도 잘해야 된다.

6.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느 때는 ‘졸려서’ 자기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가게 되고, 또 ‘잘못된 운전 습성’으로 차선을 자꾸 넘어가게도 된다. 그런데 “일부러 넘어갔다. 고의로 했다.”라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생활의 습성으로 하다 보니, <공동체 사회>에서는 ‘오해’를 받고 ‘대가’를 받게 된다. <자기 집>이나 <자기 주관권 안>은 ‘자기 인생의 차선’과 같아서 거기서는 자기 습성대로 해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안 받는다. 그러나 <공동체 사회>에서는 자기 습성대로 자유롭게 행하다 보면, 공동체 법에 의해 ‘문제’가 생긴다.

7. 하나님 앞에도 <자기 자유 의지대로 혼자 할 것>은 자기 취향대로 자유롭게 해도 안 걸린다. 먹든지 안 먹든지, 자든지 안 자든지, 방에 눕든지 앉든지, 집에서 옷을 벗고 있든지 입고 있든지, 방이 지저분하든지 깨끗하든지 <자기 취향, 자기 자유>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행할 때>는 ‘자기 식’으로 하면 다 걸린다.

8.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왜 내 마음대로 못 하게 하시지? 왜 막으시지? 왜 다 죄라고 하지? 하나님 믿

고 천국 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못 하니 힘들다. 천국에 못 가는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기는 싫고, 천국에 가려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것도 싫고... 어떻게 할까?’ 한다. 그러나 인생은 ‘자기 습성’대로만 살면 제대로 못 살고, 계속 존재를 못 한다.

9.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편하게 산다. 혹은, <자기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서 ‘그 식’대로 산다.고로 ‘자기 습성, 삶의 습성’이 생겨서 뇌도, 마음도, 생각도, 체질도 그쪽으로 굳어 버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든 것이다.

10. 어떤 사람은 부모나 형제에게 전혀 터치를 안 받고, 공동체 사회에서도 터치를 안 받고, 하나님께도 터치를 안 받고 자유롭게 살려고 혼자 ‘산속’에 집을 짓고 ‘자기 식’대로 살았다.그런데 보고 듣고 배우지를 못하니, 결국 ‘원시인의 삶’이 되고 ‘존재’를 못 하게 됐다.누구에게도 터치 받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혼자 단절되어 살면 존재를 못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행하면서 <자기 취향, 자기 자유>도 누리면서 차원 높여 행하며 살아야 된다.

11.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컸어도 처음에는 기어 다니기만 하지, 걸어 다니지는 못한다. 걸지 못한다고 기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면, 아기는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때 ‘기어 다니도록 자유 의지’를 줘야 된다. 기어 다니다가 조금 더 크면, 기어 다니라고 해도 안 한다. 그때부터는 걸어 다닌다.이와 같이 <신앙의 생명들>도 크고 성장하면, 어렸을 때 하던 대로 하라고 해도 안 한다. 그래서 <신앙>도 키워 주고 알려 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 성장하면 스스로 행한다. 알려 줘도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행하는 속도>가 느릴 뿐이다.유혹하고 꾀는 자가 알려 주면 그것을 행하니, 그 전에 <어린 신앙인들>에게 제대로 알려 주고 인도하여라.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믿는 종교를 옮기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이 힘들다.

2. <생각>만 한다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생활’을 해야 되니 힘든 것이다.

3. 어떤 종교를 믿든, 아무도 안 믿고 살았던 ‘자기 삶에서 길이 든 것’을 벗어나려면, 자기가 그 주관권이 싫어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벗어나기 쉽다. 자기가 그 주관권이 싫지 않은 한, 벗어나기 힘들다. 그것이 ‘생활’이 됐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하니, 뇌와 생각이 그것에 길이 들고 자연스럽게 해지기 때문이다.

4.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믿던 종교’에서 벗어나고 ‘그 주관권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그러니 그들에게 ‘더 좋은 것, 이 시대 복음’을 전해 주어라.

5. <좋은 것>도 전할 때 잘 전해야 된다.

6.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7. <생활>을 잘하기다. 잘못해서 일이 생긴다.

8.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도, 순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난다.

9. 매 순간마다 잘하기다.

10. <자기 의>에서 벗어나고, <잘하는 선(線)>에서 벗어나면, 바로 문제가 생긴다.

11. <깨달는 것>과 <계시>는 다르다.<깨달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다. <계시>는 ‘삼위가 주시거나, 타인이 주는 것’이다.

12.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은 ‘제2의 계시’가 된다.

13. <깨닫는 것>은 자기가 생활에서 겪고 경험하고 기도하여 배우고 터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의 세계’를 깨닫게도 된다.
14.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15. 저마다 ‘자기가 그때 처한 문제’를 깨달아야 문제를 해결하고 가게 된다.
16.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따라오게 하려니 어렵다. 고로 안 따라온다. <자기 뜻대로 하면서 따라오게 하는 것>은 쉽다.
17.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도 하고, ‘자기 뜻’대로도 하며 사는 자가 많다. 이런 자들은 영도 혼도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 그러다 결국 ‘자기 뜻’을 따라가게 된다.
18.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간다.
19. <세상의 이성>도 택하여 살고, <하나님>도 택하여 산다 하자. 두 길을 가다 보면 결국 ‘한 길’이 나온다. <길>은 ‘생명길’과 ‘사망길’이다. <길>은 둘이나, ‘한 길’밖에 못 간다. 고로 ‘생명길’을 가거나, ‘이성을 따라 사망길’을 가게 된다.
20.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점점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환경도 싫어지고, 결국 거기서는 제대로 못 살게 된다. 하나님의 주관을 벗어나서 사니, 자기 지능이 낮은 대로 고통받게 된다.
21.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인도자’가 있어서 자기를 인도해 주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희망’으로 산다.
22. <목자가 없는 양들>은 ‘환경’이 좋아도 ‘목자’가 없으니 제대로 못 산다.
23. <인도자>가 없으면, 불안하고 힘들고 위축된다.
24. 서로 얹히고 뭉치고 하나 돼야 된다. <꿀벌>이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하듯, 혼자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25. <목자가 없는 양들>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흩어진다.
26. <목자가 있는 양들>은 ‘환경’이 나빠도 목자를 따라서 서로 뭉쳐서 하나 되어 산다.
27. <우리 육신의 목자, 신령한 목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다.
28. <주>는 ‘선한 목자’다. 그는 ‘자기 양’을 살핀다.
29.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할 일들에 해당되는 말씀이니 ‘보통 말’ 같다. 만일 ‘영의 세계’에서 영들에게 말씀하시면, 같은 말씀이라도 그 차원이 아예 다르다.
30. <성경의 말씀>도 ‘그때 처한 환경’에서 말씀하신 것이니, 주가 말씀하셨어도 ‘보통 말’ 같다.
31. <계시>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다른 자는 보통으로 본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는 자기에게만 중요한 것이다.
32. 어떤 자는 ‘자기가 원했던 한 도시’에 오게 돼서 그리도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

를 찾기 위해 기도하다가, 어떤 차를 타고 가면 이 도시가 나온다고 계시를 받고 오게 됐다. 찾아서 너무 기쁘고 감동이다.” 하니, 사람들은 별로 신기하게 안 여겼다. 이들은 이미 이 도시에서 10년, 20년, 50년씩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 찾고 본 자>만 귀하고 신기하게 여길 뿐이다. 이같이 <계시>도 ‘해당되는 자’만 귀히 여기고 좋아한다.

33.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지, 다른 사람은 보통으로 여기거나 싫어한다. 고로 ‘좋아하는 사람’이 상대를 챙겨 주고,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한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도 ‘삼위와 주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하고 섬기고 따르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

35. <영의 세계>도 ‘그 세계를 좋아하는 자’만 좋아한다. <현재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현재 안고 사는 세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기 인생을 ‘육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들은 ‘영의 세계’가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육의 세계’에서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산다.

36. <영의 세계에 속한 자들>은 “육의 세계는 후에 보면 한때 꿈과 같은 세계에 불과하다.” 한다.

37. <영에 속한 자들>은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다 겪어 봐서 알지만, <육에 속해 세상에서만 살아 본 자>는 ‘육의 세계’만 아는 고로 한쪽만 아는 자다. <육>은 ‘육’으로 끝난다.

38. <하나님의 역사>도 ‘구시대’와 ‘새 시대’가 있다. <구시대인들>은 ‘구시대’만 아는 고로 거기서 좋아하며 산다. 그들은 “새 시대는 없다.” 하며 관심도 없이 산다. <새 시대에 사는 자들>은 이미 구시대를 거쳐 왔기에 안다. 아무리 구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구시대 신앙의 삶’이다.

39. <구시대인들>은 ‘결혼을 안 한 자’와 같고, <새 시대인들>은 ‘결혼한 자’와 같다.

40. <새 시대>에서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차원’도 ‘보람’도 다르다.

41. <구시대>는 ‘새 시대를 향해 가는 노정’이라 하나님은 ‘새 시대’가 오면 ‘새 시대’에서 행하신다. 마치 ‘나룻배’에서 ‘큰 배’로 옮겨 타는 격이다.

42. <역사>는 흐르니, 때에 따라 차원을 높여 오는 ‘새 역사’를 맞고 살아야 된다.

43.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다 역사를 펴시지만, 구시대가 끝나면 ‘새 시대’에서 역사를 펴신다. 이는 농부가 과일나무를 키우다가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열매’를 중심해서 키우고 관리하는 격이다.

44. <때>에 맞게 해야 ‘삶의 보람’이다.

45. <때>를 따라 행해야 ‘열매’를 맺고 얻는다.

46. 세상에는 많은 나무가 있지만, ‘과일나무’는 따로 있다. <과일나무>는 그 수도 적다. <나무>는 ‘신앙을 하는 자’들을 두고 비유한 것이다.<일반 나무>는 많지만, 이는 세상에서 살다 끝나는 자와 같으니라.

47. <육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해서 그 주관권에 해당되는 삶만 산다. 이들은 <하늘에 속해 사는 자들>보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10배, 20배 더 투자하며 하니, 육으로 보면 더 화려해 보인다. <하늘에 속해 사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삶’도 모두 ‘하늘을 위한 것, 영을 위한 것’에 투자하며 살기에 육은 화려하지 않으나, 그 대신 영원히 남아지는 영광 그들이 거하는 영의 세계가 화려하다.

48.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늘에 속해 산 자들’은 그 영이 살아서 ‘천국’에 가서 산다. 거기서 ‘육에 속해 살다가 그 영이 사망으로 간 자들’을 본다. 이는 마치 <산 자>가 공원묘지에 가서 ‘죽은 자들의 묘’를 보는 격이다.

49. <세상에서 구원받고 산 자들>은 그 영이 ‘실체 천국 황금성’에 속해 사니, ‘산 영’이 되어 영원히 기쁨과 희락으로 산다.<세상에서 육만 위해 산 자들>은 그 영이 ‘사망의 지옥, 각종 어둠의 세계’에 처해 사니 ‘죽은 자의 삶’이다. 거기서는 아무 생활이 안 되고, 오직 고통만 겪으며 산다. 탄식과 고통으로 이를 갈며 산다. 세상에서 ‘영’을 위해 안 살고, ‘육’만 즐기며 살아서다.<육신의 삶>이 끝나면, ‘육’은 시체가 되어 사라지고 그 영이 해당되는 세계에 가서 산다.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잘되기를 빌어 주나, 한 번 사망으로 간 영은 다시 복직하기 어렵다. 그 영이 무엇을 하는지 일점일획도 모른다. 세상에서 누리고 살던 것을 다 잃고, ‘사망의 세계, 고통의 세계’에 처해 산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줬으나, 일절 안 믿고 안 해서다. 혹은 하다가 말아서다.

50.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기 식으로만 믿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안 믿고 사니 구원이 안 된다. <구원자>가 자기에게 안 와서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핑계다. 하나님은 일생을 살면서 ‘구원자’를 만나도록 사람을 통해 역사해 주고 감동을 주고, 그를 믿도록 역사해 주셨다.

51. 저마다 그 세계를 가 봐야 그때서야 안다.

52. 안 가 봐도 알려면, 육신이 세상에서 살면서 ‘영과 혼’으로 가 보아라.

53. <육의 세계>는 자기가 살아 봐서 안다.<영의 세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면서, 구하고 찾으면 가 보게 된다.

54.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은 너무 쉽다. 믿으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런데 안 한다. 그 쉬운 것을 안 하고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몰라서다. <인생의 무지>가 제일 무섭고 억울하다.모두 자기 행위대로 간다. 자기 행위로 인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간다. 고로 잘해야 된다. 무지에서 벗어나라. 알아야 된다. 모르면, ‘지옥의 삶’이다.

55. 세상에서 살 때도 모르고 잘못 살면, ‘지옥의 삶’이다. ‘고통의 삶’이다.

56. 옛날에 모르고 살 때는 지옥같이 ‘고통의 삶’을 살았다. 배고프고 추웠고, 생활 속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고, 각종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며 살았다. 그 삶은 ‘감옥의 삶’보다도 훨씬 못했다. 모르고 살아서다. 알면, ‘천국’이다. ‘기쁨과 소망의 삶’이다.

57. <성령님>은 ‘기쁨과 영광’도 받으시고, ‘아픔과 슬픔’도 받으신다. <못하는 자>로 인해 ‘걱정과 슬픔’이고, <잘하는 자>로 인해 ‘기쁨과 영광’이다.

58. <주>도 각각 대하신다. <잘하는 자>를 보면 ‘기쁨’이고, <못하는 자>를 보면 ‘걱정과 슬픔’이다.

59. <할 때> 하면 20배, 50배 더 빠르다.

60. <행하는 자>는 ‘안 하는 자’보다 10년, 100년도 더 빠르다.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네가 급했지, 내가 급했냐.(하나님께 “베트남에서 작전 중에 적이 총을 겨눌 때, 그때 내가 죽을까 봐서 급하셨지요?” 하고 물으니 하신 말씀이다.)

2. 너 빨리 행하라고 급한 말로 했다.

3.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인식시켜 줘야 되니, 하나님도 급하게 표현을 하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대화하실 때>는 그리 급하게 말을 안 하신다.

5. 항상 사람이 급하다. <신>은 항상 때에 맞춰 미리 하시니, 급히 뛰지를 않으신다.
6. 제때 안 한 사람 때문에 ‘짧은 시간’을 놓고 급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으시다.
7. <아이들>은 제때 안 하니, 항상 부모가 ‘급한 소리’를 하며 빨리빨리 하라고 한다.<부모>는 미리 했으니 ‘급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같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8. 급하게 안 하려면, 미리 해라.
9. 항상 미리 해야 된다. 그러면 급히 안 뛰어도 된다.
10. 급한 때가 아니니 할 일이 없다고 여유를 부린다. 그러다가 할 일이 닥치면 정신없이 한다. <해야 될 일>이면, 지금 시작하고 미리 행하여라.
11. <성령님이 시키신 일>을 급하다고 빨리하다가 모순되게 하면, 또 시간을 들여 다시 해야 된다. 고로 시간이 3배나 더 들어가니 늘 숨 가쁘고, 사서 고생하게 된다.
12. 제대로 하면서, 미리 행하여라.
13. <글을 쓸 때>는 ‘한 문장’을 써 놓고 글자와 내용을 잘 썼는지 확인하고, 또 ‘한 문장’을 쓰고 글자와 내용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면서 써야 된다. 아예 확인하고 다음 것을 연결해서 써야 된다.<모든 일>도 이같이 해야 된다. 하나를 했으면, 확인하고 나서 또 한 단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전체 방향’이 맞는지 제대로 봐야 된다.
14.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천천히 말씀을 주는데 빨리 쓰면, 자기 뇌에 있는 것을 쓰게 된다. 고로 하나를 들었으면, 그것을 쓰고 잘 썼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것을 써라.” 하셨다.
15. <게시>도 빨리 받으면 ‘오차’가 많다. 자기 주관이 들어가게 된다.
16. <초상화를 그릴 때>도 급히 그리면 정확하게 못 그리게 되니, 그리려던 사람과 안 닮게 된다.
17. <죄를 지은 사람>을 발견해도, 먼저는 말씀을 주고 서서히 깨닫게 하며 다루기다. 쥐 잡듯 하면, 오히려 물리게 된다.
18. <도둑>이 자기 집의 물건을 훔쳐 간다고 자기 생각으로 급하게 다루면, 오히려 도둑이 칼로 찔러 해를 당하게 된다. 스스로 조심하며 지혜롭게 천천히 다뤄야 된다.
19. <게시>를 빨리 받으면, 자기 생각과 인식대로 받게 된다. 고로 자기 주관대로 받지 않도록 천천히 확인하면서 쓰고, 삼위가 생각을 주시면 써야 된다.
20. <게시>를 다 쓰고, ‘게시를 준 자’에게 제대로 썼는지 확인받아야 된다.
21. <게시를 받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게시를 준 자’에게 물어봐야 된다.
22. 강의를 해 주고 말씀을 전해 주면, ‘들은 자’에게 물어볼 시간을 줘야 된다.
23. 어떤 상황이 터지고 나서 발견하면 늦다. 밭에 있는 두더지를 잡듯, 할 때 순서대로 천천히 확인하며 해야 된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지듯 빨리하되, 이왕이면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들기다. 확인하고 조심하면서 행하기다.

24. <급한 것>만 생각하고 확인도 안 하고 뛰어들면, 빠진 자는 구했는데 자기가 빠져 죽기도 한다.

25. 사냥을 가서 짐승을 발견하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냥하기에 최고 좋은 지역’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결국 ‘사냥을 하기 위해 땅을 쳐 놓은 곳’까지 조심해서 움직이며 가야, 그때 잡게 된다.

26. 삼위와 주께 항상 물어보고 행하여라. 물어보면, 그것이 합당하면 ‘답’을 주신다.

27. 갇힌 자에게만 보고하지 말고, 먼저 자기가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교단’에 보고 해라. 교단에서도 못 하면, 못 하는 것만 보고해라. 작은 일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주께 보고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교역자가 면담하고 뒤에서 다른 자에게 이야기한다.’ 하며 그것을 주께 보고한다. 들은 자가 가서 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 현장에서 해결하고, 안 되면 교단에 보고하고 하여라. 교단에서 얼마나 잘 해결해 주겠느냐. 다만, 교단도 ‘교단에서 할 것’만 하여라. 중간에서 본 것을 주께 보고하지도 말고, 편지하지도 말아라. 여기가 교단이 아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된다. 본인이 혼자 못 하면, 다른 자들과 같이 가서 이야기해라.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만물의 이치>를 통해 ‘자기’를 깨달아라.

2. <처음 만난 자>에게는 ‘새것’이다.

3. <이미 썼던 자>에게는 ‘옛것’이지만, <처음 쓰는 자>에게는 ‘새것’이다.

4. <집>도 이미 살던 자가 계속 살면 그에게는 ‘옛것’이지만, 다른 자가 와서 처음 살면 그에게는 ‘새것’이다.

5. <쓴 자>에게는 ‘옛것’이지만 <안 쓴 자>에게는 ‘새것’이다. <역사>도 그러하기에, 처음 접하는 자들은 ‘옛 역사’도 ‘새것’이라고 하며 좋아 산다.

6. <사람>도 이미 같이 살았던 자는 ‘옛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자는 ‘새 사람’이라고 한다.

7. <먼저 살았던 자>만 ‘새것’을 분별하고, <늦게 와서 사는 자>는 ‘새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8. 가령 두 사람이 각각 길을 걷는다 하자. <한 사람>은 먼저 출발해서 오전에 산을 하나 넘고, 오후에는 그 다음 산을 넘어갔다. <다른 한 사람>은 다음 날에 ‘먼저 간 사람이 넘었던 산’을 넘어갔다. 산을 넘으면서 “이 산은 새로운 산이다.” 했다. 이에 먼저 산을 넘어간 사람이 “나에게는 옛 산이다.” 했다. 그 산을 또 넘으면 반복하는 것이니, 그에게는 ‘옛 산’인 것이다. 이같이 ‘반복하는 자’에게는 ‘새것’이 못 된다.

9. <역사>도 그러하다. <기성 역사>를 지나 ‘새 역사’를 만났으면, 그에게는 기성 역사가 ‘옛 역사’가 된다.

10. <사람>도 ‘새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늘 만나던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같이 <신약인들>은 ‘성약역사’를 모르고 ‘구약역사’를 보며 비교하니, 자기 역사가 ‘새 역사’라고 한다. <새 시대 성약역사에 온 사람>은 ‘신약역사’를 보고 ‘옛 역사’라고 한다.

11. <옛것을 가진 자>는 ‘새것’을 모르니 자기가 가진 것이 ‘새것’이라고 주장하나 ‘새것’은 아예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 <옛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고, <새것>은 소녀, 소년, 청춘들과 같다.

12. <옛 역사>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고, <새 역사>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다.

13. <옛 역사>는 ‘구원의 사랑’이고, <새 역사>는 ‘휴거의 사랑’이다.

14. <옛 역사>는 ‘믿음의 역사’다.<새 역사>는 ‘믿었던 것을 만나서 이루고 행하는 역사’다.
15. <옛 역사>는 ‘희망의 신앙을 하는 역사’다.<새 역사>는 ‘희망을 이루고 사는 실제 사랑의 역사, 기쁨의 역사’다.
16. <옛 역사>는 ‘천국에 도전하는 신앙’을 하는 역사다.<새 역사>는 새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황금성 천국에 도전하는 신앙’을 하는 역사다.
17. <옛 역사>는 ‘애굽’을 벗어나 ‘신광야’로 가는 역사다.<새 역사>는 ‘신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복지’로 가는 역사다.
18. 하나님은 항상 ‘구역사’와 ‘새 역사’, 두 가지로 역사를 펴 가신다.
19. <개인>도 자기가 하던 일만 계속하면서 살면 ‘옛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차원 높여 행하면, ‘새 삶’을 사는 것이며, ‘옛것을 장사 지낸 삶’을 사는 것이다.
20. 누가 새 살림을 시작한다고 잔치해서 가 보니, 다른 자와 살다 이혼한 자였다. 그러면서 “새 삶이다.” 하면서 기뻐했다. 아는 자만 ‘새 삶’이 아닌 줄 안다. 다른 자들은 모른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쓴 자>만 알고, <본 자>만 안다.
21. <재고품>인지는 그것을 만든 회사만 안다.
22. 가령 한 회사가 ‘작년에 나온 물건’을 시장에서 팔았다 하자. 모르는 자들은 그 물건을 처음 보니 “새것이다.” 하며 사 간다. 그러나 작년에 샀던 자는 알고 “그것은 옛것이다.” 한다. 모르는 자들이 “새것인데 어찌해서 옛것이라고 하나?” 하니, 아는 자는 올해 나온 새것을 보여 주며 “작년에 나온 것과 모양도 다르고 질도 다르다.” 하고 설명해 주었다. 사실 이 사람은 ‘그 제품을 만든 회사의 사장’이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 물건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 그 회사 사장이요.” 했다. 그제야 사람들이 모두 알고 “저 물건은 옛것이구나.” 하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믿었다. 이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니라. <주인>을 증거하기 전에는 모른다.
23. 하나님은 ‘새것의 하나님’이시다. 늘 ‘새 역사’를 하신다.
24. <앞을 향해 가는 자>는 매일 ‘새로운 배경, 새로운 길’을 걷는다.
25. <돌고 도는 자>는 매일 ‘같은 배경, 같은 세월의 길’을 가게 된다. <기성인들>이 그러하다. <게으른 자>, <낙심하고 사는 자>, <기도하지 않는 자>, <실천하지 않는 자>,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도 그러하다.
26. 전도, 강의, 관리 모두 새롭게 해야 된다.
27. <구시대의 것>으로 ‘새 역사의 것’은 안 된다.
28. <월명동>을 보아라. 실천하면, 계속 ‘새것’이 탄생되어 마치 새로운 옥동자를 낳은 것같이 ‘새 작품’을 보게 된다.
29. 각 교회들도 ‘전세살이 하던 옛것’을 버리고, ‘새것, 새 성전’을 사니 궁궐 같은 곳에서 ‘새 역사’를 펴 나간다. 이같이 자기도 ‘옛 성격, 옛 생각, 옛 마음’을 버려야 ‘새것’을 얻게 된다.
30. <새 사람>을 만들면, ‘새로운 것’을 얻게 된다.
31. <새로운 것>을 얻어야 ‘기쁨과 희망’이 생긴다. <새로운 것>을 얻어야 힘이 생기고, 흥분되고 좋아서 더욱 도전하게 된다.

32. <예술>도 늘 새로운 무대를 보여 줘야 ‘새로운 자들’도 와서 보고, ‘이전에 봤던 자들’도 또 와서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 <옛것>은 또 보러 안 온다.

33. 섭리사 교회들 중에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새로운 이벤트’가 없어서다. 교인들이 모두 의논해야 ‘새것’이 생긴다. 기도하고 구하여라. <주>와 의논해라.

34. <말씀>도 40년 동안 늘 새로운 말씀을 줬다. 5만 잠언을 보아라. 날마다 ‘새로운 잠언’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실천할 것이 무한히 많다는 것이다. 말씀 따라 행하고, 연구도 해라.

35. <새것을 가진 자>만 ‘새 역사’를 한다.

36. <새것을 가진 자>만 안다.

37. <정보>도 ‘새로운 정보를 가진 자’가 알고 성공한다.

38. 어떤 자가 “새것이다. 들어 보아라.” 해서 들어 보니 “성경에 기다리던 주가 곧 온다. 하늘 구름을 보아라. 흰 구름이 몰려오지 않느냐? 이것이 징조다!” 했다. 하늘을 보니 진짜 흰 구름이 밀려왔다. 노인들은 신기해하며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고, 하늘 구름을 보며 기다렸다. 그러나 젊은 자들은 “불쌍하다. 늙어서 불쌍하고, 몰라서 불쌍하다. 누가 저들을 깨우쳐 주나.” 하며 다 탄 데로 갔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자기 조상들이 2000년 동안 하늘 구름을 쳐다보며 기다렸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계속 그리 기다린다. <젊은 자들>은 ‘인구름을 타고 오신 주’를 맞고 ‘새 시대’를 살아간다. <젊은 자들>이 누구냐. 노인이라도, 중년이 넘었어도 ‘인구름을 타고 오신 주’를 맞고 사는 자들이 ‘젊은 자들’이다.

39. 어떤 자가 사람들에게 “새 잔치 하니 와 봐라.” 했다. 이에 옆에 있던 자가 “어떤 잔치냐? 알아야 축하 선물도 사가지.” 하기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새 집으로 이사 간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하려고 한다.” 하고 이야기해 줬다. 고로 많은 자들이 그 집에 가서 잔치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은 안 갔다. 나중에 그에게 왜 안 왔는지 물어보니, “그 아파트는 새로 짓긴 했어도 150년 동안 지어 온 옛 방식의 구형 아파트다. 구조만 다르지 모두 50년, 100년, 150년 전의 옛것에 속한 ‘똑같은 구식 아파트’다.” 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길 “내 집도 집들이하니 와 봐라. 네 친구들이 한 트럭으로 와도 좋다.” 했다. 가서 보니, 아파트가 아니었다. 정원에 운동장이 있고,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수영장, 폭포수, 산책로가 있었다. 정원을 구경하다가 집은 구경도 못 하고 해가 다 지고, 시간이 늦어서 해 놓은 음식도 못 먹고 돌아갔다. 모두 “이것이 새것이구나.” 하고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가 기다리는 유토피아구나.” 하고 깨닫고 자기도 이같이 ‘새것’을 얻고 살기를 원했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아파트>는 새롭게 지어도 구조나 디자인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구식 아파트’다. <2000년 신약역사>가 그러하다. 기성에서 전하는 말씀이 다 ‘아파트에 속한 것’이다.

40. <애벌레>는 크나 작으나 크기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애벌레’다. <구 역사>도 그러하다. <구 역사>에서 살면서 아무리 “새것이다. 새 역사다.” 해도 ‘똑같은 구식 아파트’와 같아서 모두 ‘옛것, 옛 역사’다.

41. <휴거되지 못한 자들>도 애벌레와 같다. 크나 작으나 ‘나비가 되는 목적’을 못 이뤘으니 늘 땅에서 꿈틀거린다.

42. <구시대 역사>는 ‘새 역사’를 기다린다.<새 역사>는 ‘부활되는 역사’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주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에서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2. <기성이나 이단들>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이제는 그 체제를 바꿀 기회가 없다. 전에는 기성과 이단들도 체면상 ‘자기 것’을 주장했다. 그러다 그들 주장대로는 안 되니, ‘섭리사의 것’을 가져다가 썼다. 지금은 ‘섭리사의 것’을

가져다 쓸 시간도 없다. 섭리사 신부들은 휴거되어 날아가니, 너무 높아서 그들 손에는 안 닿는다. 아예 오를 수도 없다. 그들이 ‘섭리사의 것’을 일부 가져다 쓴다 해도 그곳에는 ‘핵’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산다. 하나님이 ‘옛것’을 드러내시니 못 들은 체, 못 본 체 하고 산다.

3. <이 시대>가 ‘옛것’을 드러내고, <삼위>도, <새 역사를 따르는 자들>도 ‘옛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쳐다보는데도 그들은 “나는 아파트가 좋아. 궁궐은 별로다.” 하며 ‘옛것’에 속해 산다.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은 휴거되어 높은 곳에 있으니, 그들은 새 시대를 맞은 자들을 보고 “거기는 광활하고 어지럽다. 나는 여기가 좋다.” 한다. 마치 애벌레가 “나는 땅이 좋다. 날면 현기증 난다.” 하는 격이다. 나이 먹고 날려고 하니,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울 만하다. <옛것>과 <새것>을 분석하여 신혼골수 쪼개듯 쪼개서 말했다.

4. <문화>도 늘 ‘옛것’을 반복하니 모두 질렸다. <TV 프로그램>도 이제 먹고 즐기는 것뿐이다. 마치 먹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종일 먹기만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뭐 그리 먹는 것이 중하나. <의롭게 사는 것>이 중하다. <의>를 보고 개인도, 민족도 심판한다.” 말씀하셨다.

5.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이 제자리를 돌듯 살면 지겹다.

6. 하나님은 ‘6000년 종교 역사’ 동안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 역사하시며 계속 새롭게 희망을 주며 오셨다.

7. <새로운 삶>이다.<영광의 삶>이다.

8. <예전에 전도했던 자>로만 만족하고 살면 ‘전도의 차원’을 못 높이고, ‘전도의 휴거 역사’를 못 이룬다.

9. 선생이 3만 명 전도할 때는 마치 ‘월명동 돌’을 하나 쌓고 또 하나를 가져와 쌓듯, 한 명을 전도하고 또 나가서 한 명을 전도했다. <나무>도 하나를 심었으면, 돌아다니면서 또 하나를 사 와서 심었다. 그러면서 ‘월명동 숲’을 만들었다. <작품>도 계속 구하고, 사 오고, 얻고 해서 월명동에 형상석이 그리 많게 되었다. 이같이 <전도>도 그러하다. 만 명이 있어도 전도를 안 하면, 마치 평생 작품을 한 가지밖에 못 사다 놓고 사는 자와 같다.

10. <목숨 걸고 전도를 안 한 자>는 몇 명씩만 전도하고서 마치 ‘한 식구’같이 하고 산다. 어떤 자는 ‘몇십 명’까지 했고, 어떤 자는 ‘몇백 명’까지 한 자도 있다. <성령집회>를 하면, 새로 생명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한다. 그 후로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그로 인해 ‘몇백 명’이 전도된 것이다. <말씀을 전한 자>가 ‘전도한 자’가 된다. 그리고 <생명을 데리고 온 자>도 ‘전도한 자’다.

11. <섭리사>에서는 “전도하면 기적이다.” 한다. 전도가 안 되니 그리 말한다. 말을 잘하면, 일순간 전도되어 온다. 말을 잘못하면, 오히려 오해한다. 그러니 수백 명이 그냥 스치기만 하고 간다.

12. <사람들이 볼 때>는 ‘새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새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파트>를 새로 지어도 ‘옛날 건축 방식’으로 지으니 ‘옛것’이듯이, 구시대에서 ‘새것’을 해도 그것은 ‘구시대 방식 신앙생활’이니 ‘새 시대 것’이 아니다.” 하셨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쓴 원고를 보여 드리며 빠진 것이 있는지 물으니, 이 내용을 쓰게 하셨다.)

13. 지금도 <계약인들>은 ‘계약 주권권’ 안에서 달리하면서 그것이 ‘새것’이라고 한다.

14. <기성인들>도 ‘기성 주권권’ 안에서 새롭게 하면서 그것이 ‘새것’이라고 한다.<하나님의 새 시대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새 시대 새것’을 못 이루고 끝난다.

15. <옛 방식, 옛것>은 시작할 때도 한 것이다.<옛 주권권>에서 벗어나야 된다.

16. <노래>도 그 주권권 안에서 새로운 곡을 써서 부르나 역시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이다. <새 시대>는 ‘새 시대, 새 말씀’으로 곡을 쓰니 내용도 자료도 아예 다르다.

17. <기성>은 ‘콩’을 가지고 고기를 만드는 격이고, <새 시대>는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만드는 격이다. <새 시대, 새 것>은 아예 ‘질’이 다르다.

18. <새 시대>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자료를 다시 주신다. 그가 그 말씀 자료를 가지고 새 역사를 행하니 아예 ‘질’이 다르다. <새 역사>에서는 ‘휴거’를 이뤘다.

19. <섭리사 말씀>도 예전 말씀은 ‘기본 말씀’이고, 요즘 말씀은 ‘방향에 대한 말씀’이다.

20. 최후에 하나님과 주는 사랑으로 ‘휴거’를 이루신다. 이외에 ‘새것’은 더 없다.

21. <새것>이라고 해서 새 시대가 많이 다른 것이 아니다. <기본> 위에 ‘사람’만 다르고, ‘위치’만 다르다. 그를 통해 ‘새것’을 해 준다.

22. <새로운 방식>은 ‘별장을 짓고 사는 격’과 같아서 위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다.

23. <교회>도 ‘새것’이라고 샀는데 ‘구조’만 좀 달랐다. 건축 공법은 같은데 모양이 다르고 형상이 다르고 위치가 달랐다.

24. 오래되었어도 ‘새 시대 사람’이 새롭게 하면, ‘새것’이다.

25. 예수님은 ‘공생애 역사’를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 역사가 일어났다. <육>으로 하다가 ‘영’으로 하니 그 주관권 안에서 ‘새 방식’이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새 방식>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

26. <음식>도 그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그 음식은 ‘새 것’이다.

27. 세상에서도 서로 ‘새 상품’을 만들어 내며 경쟁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8. 매일 기도하여 성령님께 ‘새것’을 받고, 영의 세계에 가서 ‘새것’을 배워라. 그러면 새 역사에서 계속 ‘새것’을 얻고 사니, 성령도 함께 행하시리라.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정기적으로 해야 존재한다.

2. <살아 있는 자>는 행한다.

3. <살아 있는 만물>도, <인생>도 ‘행하는 재미’다. ‘행하는 기쁨’이다.

4. <수고의 대가를 얻는 기쁨>이다.

5. <얻고 쓰는 희락과 행복>이다.

6. 사람들은 모두 편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그만큼 뛰어라.

7. <지나가는 명예>는 ‘바람’과 같다.

8. <영원한 명예>를 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육의 삶에서 끝나는 명예’에 불과하다.

9.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매이고, 죄의 종이 되어 육도 혼도 영도 사망에 속한 곳에 가 있게 된다. 고로 죄를 지었으면, 절대 회개해야 된다.” 하셨다.

10.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의의 옷을 입고, 육도 혼도 영도 ‘하나님의 주권권, 생명권’에 들어와야 된다.

11. <생명권>에서 의를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야 된다.

12. 죄를 회개하여 죄에서 풀려남을 받고, 의를 행함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야 된다.

13. 죄가 있으면,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안 되고 천국에도 못 간다. 고로 모두 죄를 회개해야 된다.

14. <기도 기간>에 죄들을 회개하여라.

15. <민족이 잘못된 죄>도 자기 민족이니 자기가 기도해서 회개해야 된다. 자기가 사는 집의 더러운 것을 안 치우면 자기에게도 해를 주는 것과 같이 <가정의 죄>도 그러하니 모두 회개하여라. 회개하여 ‘하나님의 노’를 없애고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죄의 조건’이 없으니, 주실 것을 주신다.

16. <죄의 조건>은 ‘하나의 사슬’과 같다.

17. <의의 조건>은 ‘사랑 줄’로 묶어 놓은 ‘은혜의 사슬’이다.

18. 하나님은 ‘자기 것’이 되면, ‘자기 법’으로 묶어 놓아 안전하게 지키신다.

19. 하나님과 주는 ‘사랑의 줄, 은혜의 줄, 관리의 줄’로 묶어 놓고 ‘자기 것’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더 좋은 것을 찾는 자>는 ‘더 좋은 것’을 찾게 된다.

2. <더 좋은 것>은 더 차원 높ی 있다.

3. <더 좋은 것>은 후(後)에 있다.

4. <구약 잔치>는 ‘종이 쉬는 잔치’다.<신약 잔치>는 ‘자녀 생일잔치’다.<성약 잔치>는 ‘사랑 잔치, 혼인 잔치’다.

5. 무엇이든지 거기서 ‘최고 아름다운 것’을 얻으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느냐.<휴거>는 하나님이 지구 세상에 역사를 펴시고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 아름다운 것’이며, ‘최고의 사랑’이다.<최고의 것>은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된다. <최고의 것>을 얻고 10년, 20년, 50년, 일생을 다 누려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

6. <관광>을 가면 좋다는 지역은 다 봐야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듯이, <휴거>도 얻고 육도 영도 다 누려 봐야 휴거가 얼마나 좋은지 안다.

7. <휴거>는 ‘육 평생, 영 영원히’ 누려 봐야 안다. 그러니 어떻게 말로 한다고 다 알겠느냐. <휴거 잔치, 사랑의 혼인 잔치>만 해도 1000년 동안 한다.

8.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휴거’다.

9. <휴거의 근본>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로 변화되어 육은 땅에서 삼위와 주를 맞고 사랑하며 살고, 그 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육>은 땅에서 평생 사랑하며 살고, <영>은 최고 좋은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간다. <휴거된 자>는 그 영이 먼저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 사랑 잔치’를 한다.

10.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휴거 역사, 사랑 역사’를 펴시려고 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이성으로 타락하여, 그들로 이루려고 했던 ‘사랑의 뜻’이 깨졌다. 구약 40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2000년 동안 ‘자녀급 사랑 역사’를 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메시아를 땅에 보내시어 그를 통해 ‘최고 사랑의 역사, 휴거 역사’를 하셨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휴거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갈수록 더 차원 높여 역사하시며, 마지막에 최고로 하셨다.

11. 영계에서 한 지역을 보니, ‘이상세계’였다. 경사진 곳이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더 좋고 아름다운 환경이 나왔다. 맨 위에는 너무도 큰 집이 지어져 있었다. 그곳은 전체 지역 중에서 제일 좋은 장소였고, 사람들을 지휘하는 머리와 같은 장소였다. 이같이 <역사>도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마지막에는 ‘휴거’로 육도 영도 ‘최고 좋은 것’을 얻는다.

12. <사람>도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얻는다.

13. <섭리사>도 갈수록 ‘더 좋은 교회’를 얻었다. 앞으로도 그러하다.

14. <교회를 찾을 때>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좋은 것을 찾았다.

15.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찾으면 찾을수록 ‘더 좋은 돌’과 ‘더 좋은 나무’를 주셨다. 마지막에 더 좋은 돌로 쌓고, 더 좋은 나무로 심어 놓으니 삼위도 만족하셨다.

16. <서울의 한 교회>는 계속 교회를 찾다가 ‘여섯 번째’에 제일 좋은 곳을 찾게 되었다. 그곳은 그동안 찾은 곳 중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그 위치는 ‘그 지역의 중앙지’다. ‘에덴동산과 같은 위치’다. <위치>가 ‘생명’이다.

17. <지체>도 위치대로 존재한다.

18. <위치>에 따라 ‘보석’이 된다.

19. 하나님께 좋은 곳이 어디인지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위치>가 ‘생명’이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좋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다.” 말씀하셨다.

20. <사람>도 자기가 사는 집에서 ‘멀리 있는 가게’보다 ‘가까이 있는 가게’를 더 찾고 좋아한다. 좋아도 멀면, 위치상 좋지 않다. 이같이 <모든 존재물>도 그러하다. <논이나 밭>도 집과 가까워야 문전옥답(門前沃畝)이듯 중심에 있든지, 눈에 보이든지, 손에 닿든지, 몸에 닿든지 가까워야 좋다.

21. <월명동>도 가까운 산에 더 손길이 가고, 그곳을 정원으로 쓴다.<멀고 먼 감람산>은 등산이나 산책 코스로 쓴다.

22. 월명동은 주변에 산이 둘러져 있어서 마치 ‘방’과 같다. <월명동을 둘러싼 6개의 산>은 ‘앞산, 동그래산, 전망대와 기도동산 한 덩이, 청기와집 뒤 능선, 해 뜨는 조산, 가는골 능선’이다. 이곳에 작품을 쌓고, ‘자연성전의 정원’으로 만들었다. <운동장 중앙>에서 직선으로 200m 거리는 모두 ‘성전의 정원’이다.

23. <주>와 가까워야 마치 ‘집 앞의 정원’과 같다. <주>와 가까우면 ‘주의 집과 정원’이 되고, <주>와 멀면 ‘산책로’가 된다. 성삼위께도 그러하다.

24. 하나님의 6000년 구원역사 중에 ‘어느 시대, 어느 위치에 사느냐’에 따라 ‘최고’가 좌우된다. <구약역사>는 ‘시작하

는 위치’이고, <신약역사>는 ‘성장하는 위치’이고, <성약역사>는 ‘맨 마지막 완성하는 위치, 최고 위치’이다. 가을에 열매를 맺고 거두는 격의 역사다.

25. 하나님은 ‘구약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원역사를 펴 오셨다. 신약을 거쳐 그 기간이 6000년이 다 되니, 하나님은 그 목적과 구상대로 ‘마지막 신부급 역사’를 펴시고, 휴거로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셨다.<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 일체 된 삶’을 사는 것 외에 더 좋은 것은 없다. 이제는 ‘사랑의 삶, 휴거의 삶’을 사는 역사다. 마치 사랑하는 자와 결혼해서 매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다. 만일 결혼했어도 같이 못 살고 떠나면, 다시 ‘6000년 전 역사’에 속한 자가 된다. 거기서 다시 6000년이 지나 복직한다고 해도 보장이 없다.가령 젊었을 때 사랑하다 헤어졌는데, 60년이 지나고 다시 만났다 하자. 60년을 살아왔어도 이미 때는 지나고 ‘노인’이 된 후다. <역사>는 ‘그때, 그 순간’ 따라가야 된다. 지나가면, ‘죽은 역사’다.

26.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그 순간’ 뛰어들어야 된다. 그때 안 하면, 마치 빠진 차바퀴 자리에 새 바퀴를 갈아 끼우고 가듯 역사의 그 자리에 다른 자가 와서 그 뜻을 이루고 간다.

27. <육신>은 ‘한계’를 넘으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 이상은 더 못 느낀다. 더 느끼려고 해도 못 느끼고, 최고 한계선까지만 느낀다.<사랑>도 더 느끼려고 해도, 한계를 넘으면 더 못 느낀다. 한정된 순리 내에서만 얻고 느낀다.

28. 가령 소금 맛이 좋다고 한계를 넘어 많이 넣으면 짜서 음식 맛을 못 느끼게 된다. 또,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맛을 못 느낀다. <인생 삶>도 그러하다. 모두 더 느끼고, 더 즐기고, 더 사랑해도 한계를 넘으면 그 이상은 못 느낀다. 순리 안에서의 한정된 기쁨과 낙이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영의 세계>는 높이면 높일수록 더 느끼고, 더 차원 높은 이상세계를 누린다. <영>은 ‘육’보다 차원이 높고, 그 세계가 무한하다. 고로 ‘영’으로 해라.

29.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고로 <육과 영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보다 무한하다.

30.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순리’를 넘어 더 느끼려고, 육신 사랑의 한계를 넘어 행하다가 신경이 마비되고 불구 인생이 되어 살기도 한다.

31. 하나님과 주의 뜻대로 해야만 찾을 것을 더 찾게 된다.

32. <인간의 육신>은 그 생각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한계’가 있다.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처음 맛’을 잃는다. 이같이 육적 사랑도, 작품도, 환경도, 생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하다. <인간의 뇌>가 그러하다. 고로 자기 육도 영도 하나님과 주께 속해서 행하여라. 그러면 ‘영’으로 하니, 무한하다.

33. 하나님은 ‘옛 시대 역사’만 계속하면 ‘새 시대’ 사람에게는 안 맞으니, 때가 되면 ‘새 시대 새 역사’를 차원 높여 펴신다. 그리하여 ‘새 시대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최고 목적’을 이루신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인>과 <주인이 아닌 자>는 ‘생각’이 다르다.

2.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

3. <주인의 생각>과 같으려면, 자기를 ‘주인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

4. <주인>은 ‘자기 것’이니, 안 버리려고 용서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아끼고, 사랑해 준다. 주인 되어 사람도, 존재물도 대한다.

5. <주인>은 자기 것이니 알고 대하고, <타인>은 자기 것이 아니니 모르고 대한다.

6. <주인>은 ‘자기 것’이니 귀하게 대한다.
7. <주인>은 ‘자기 것’이니, ‘제 몸’과 같이 대한다.<타인>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입장에서만 대한다.
8. 하나님은 주인이시라 버리시지도 않고, 같은 주인처럼 여기고 대해 주신다.
9. <물건>도 ‘그 물건의 주인’은 귀한 줄을 안다. 고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귀히 여긴다.
10. <귀한 것을 아는 자>는 사 가서 ‘주인’이 된다.
11. <주인>은 ‘자기 것’이라 겉도 알고, 속도 안다.
12. <주인>이 따로 있다.
13. <주인이 될 자>는 ‘보화’로 본다.
14.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귀히 여기며 주인 되어 행하는 자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도 하신다.
15. 자기가 주인이 되면,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게 되니, 더 알게 되고 더 귀히 대하게 된다.
16. <타인>은 사람도, 건물도, 땅도, 물건도 ‘자기 식’으로만 대한다.
17. <주인>은 땅이나 만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며, 투자도 하고, 관리해 준다.
18. <주인>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귀하게 본다.
19. <자기 것>을 볼 때와 <타인 것>을 볼 때는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것이다.
20. <주인>은 책임지고 대하고 살아간다.
21. <주인>은 도적이나 악한 자가 ‘자기 것’에 해를 주면,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피해를 주는 자들을 모두 해결해 준다. 주인은 자기 곡식에 해를 주니, 밭에서 잡초를 뽑아 없앤다. 타인은 자기 것이 아니니, 그에 해당되는 값을 받고 일한다.
22. <주인>은 물건이나, 곡식이나, 건물이나, 사람이나 모두 ‘자기 것’이니 주인 되어 책임지고 관리하고 지킨다. <타인>은 자기 것이 아니므로 그리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23.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만물들의 주인’이시다. 고로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시다.
24. 교회를 살 때나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내가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이니라. 네가 원하느냐?” 하신다. 내게 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며 원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들에게 맡겼던 것을 때가 되어 주인에게 옮기려고 한다.” 하신다.고로 “제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원주인인 네게 준다. 너를 위해 예비한 것이다. 값을 주고 정당하게 받으라.” 하시며 교회 건물이나 땅에 얹힌 사연을 이야기해 주신다.
25. <주>라는 단어도, ‘주인’에서 온 단어다.

26. 하나님은 ‘하늘의 주인’을 땅에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시고, 그에게 맡기신다.

27. <월명동>도 ‘주인’에게 맡기고, 그가 개발하게 하고 투자하게 하셨다. 고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28. 하나님은 주인 되시어 같이 도우시고, 관리하시고, 함께해 주신다. <구약> 때는 ‘종의 주인 입장’에서 대하시고, <신약> 때는 ‘한 식구와 같은 입장’에서 대하시고, <성약> 때는 ‘사랑하는 애인 입장’에서 대하신다. 결혼하면 남녀가 서로 100% 책임을 다해 대하듯이 ‘성약 신부 시대에 사는 자들’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으면, 자기가 사랑의 주인이 되어 삼위와 주 앞에 100% 책임을 다해 사랑하고 행해야 된다.

29. <주체>와 <대상>이 같이 책임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책임을 못 하면, 자격에서 상실된다.

30. <자기 몸>도 자기가 주인이니 ‘주인 된 위치’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사고 나서 자기에게 해가 되고 건강도 뺏기게 된다. 자기가 주인이니, 자기가 안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안 하면, 샅을 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 <주인이 관리하는 것>과 <타인이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주인 되어 하면, 자기도 ‘주인’이다.

2.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귀히 쓸 자’에게 맡기신다.

3.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것’을 귀히 쓰고 관리하여 손상 없게 하는 자에게 맡기시고, 때가 되면 마치 전셋집 바꾸듯 ‘하나님이 보낸 주인’에게 아예 100% 맡기신다.

4. 성경에 보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출을 드리지 않는 자는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소출을 드리는 자에게 준다고 했다.

5. <역사>도 새 시대가 오면, ‘귀히 보고 대하는 자’에게 새 시대를 맡기신다. <구약> 때는 ‘모세’에게 맡기시고, 시대가 가면서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나 ‘왕들’에게 맡기셨다. <신약> 때는 새 시대가 오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2000년 역사를 운영하셨다. <성약> 때는 성경의 예언대로 ‘새 시대’가 오니,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통해 새 역사를 펴며 ‘사랑 역사, 휴거 역사’를 운영하게 하셨다.

6. <교회>도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하나 되어 행하며, ‘더 주인 되어 할 자’에게 맡기신다.

7. <각종 사명들>도 ‘주인 되어 하는 자’에게 맡긴다.

8. <주인>이 되었어도 새벽에 잠이나 자고, 일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TV나 보며 놀고, 세상에서 육적으로 자기 시간을 보내는 자는 사명을 빼앗아 ‘주인 되어 열심히 할 자’에게 그 사명을 맡긴다.

9.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소출이 많다.

10. <주인>은 ‘곡식과 과일’만 보고 농사를 지으나, <타인>은 ‘대가’만 보고 한다.

11. <섭리사>에서 ‘하늘의 일’을 맡겼어도 타인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다. 주는 급여만큼도 수고를 안 하고 거의 논다. <주>는 이런 자들을 놓고, 자기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들게 하여 그만두게 늘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는 평생 ‘하늘의 일’을 안 맡기려고 주가 기도하게 하신다.

12. 게으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 일하고, 의논하지도 않고 하는 자들은 모두 ‘타인’과 같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안 해 주신다. 의논할 때만 잠깐 의논하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하는 지능적인 자들은 하나님도 주도 알고 평

생 ‘하늘의 일’을 안 맡기시고 자기 일만 하게 하신다.

13.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인같이 하는지, 타인같이 하는지’ 다 안다.

14. <주인>은 힘들어도 끝까지 한다.

15. <주인>은 형식적으로 일하지 않는다.

16. <집을 건축할 때>도 ‘주인’은 자세히 보고 튼튼하게 짓는다. <타인>은 자기 집이 아니니 ‘제 것’처럼 안 짓는다.

17. <섭리사>에서도 ‘주인 되어 행하지 않는 자’는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이 살아간다.

18. <주인>이 안 되고 ‘휴거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19. <주인>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일한다.

20. <타인>은 책임 의식이 없고, 중한 일도 보통으로 보고 한다. <주인>은 애간장이 타서 한다.

21. <주인>은 월명동 잔디밭이나 산에 뱀이 있으면 즉시 잡아 죽인다.<타인>은 보고 피해서 간다.

22. <주인>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온 산을 다니며 찾고, <타인>은 양이 이탈해도 그냥 둔다. <잃은 양>을 찾아오라고 하면, 타인은 산기슭을 조금 다니다가 온다. 그러니 못 찾는다. <주인>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온 산을 다니며 찾으니, 결국 찾아온다.

23. <주인>은 항상 지켜보고 쳐다본다.

24. 시키지 말고, ‘주인 된 자’가 해라.

25. 주인 따라 모두 하니, 주인이 제대로 해야 된다.

26. 항상 주인이신 삼위와 주와 100% 의논해라.

27. <의논하지 않은 자>는 ‘타인’이다.

28. <주인>은 ‘제때’ 행한다. <타인>은 제 것이 아니라 책임 의식이 없으니, 제때 행하지 않는다.

29. <주인>은 자기가 살 곳이니,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고 마음에 들 때까지 튼튼하게 만든다.

30. 주인 되어 행하여라. 그러면 ‘근본자 되신 주인의 마음’에 드니, 통하게 된다.

31. <하나님의 역사>는 ‘주인이 되게 하는 역사’다.

32. 책임을 못 하면, 주인 자격이 상실되게 하여 일을 안 맡긴다.

33. <자기 생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를 관리하여라.

34. <타인>은 먹고 즐기는 것을 중시하고 사니, 일을 할 때는 구경꾼이 되어 눈에 띄지도 않는다.

35. <주인>은 아껴 쓴다.

36. <주인>은 수시로 청소하여 깨끗하게 쓴다.

<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쉬운 일>인데도 실상 ‘실천’은 어려운 것이다.

2. <아는 것>도 실천하지 않아서 실패한다.

3. <내용>이 크거나 작아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안 해서 실패한다.

4.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도 안 해서 실패하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다르게 행해서 실패하고 망한다.

5.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나 능히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실천’하지 않아서 화를 받고 실패한다.

6. <실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다. 자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못 하게 된다.

7. 실천하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 때문에 실천을 못 하게 된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절대 요동치 말고 하나님과 주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해야 된다.

8. 가령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상대가 ‘사랑할 수 없는 상대’라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자. 그래도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9. 또, 하나님이 “해라.” 하셔서 하다 보니, 상대가 지금껏 자기를 속인 것을 알게 됐다 하자. 그때는 계속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실천이 어렵다.’ 함이다.

10.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은 주인이 시킨 것을 전해 줘야 되듯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꼭 실천해야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의 존재자’이시니 사람이 말하듯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말하듯 하셨으면, 대부분 그 음성을 듣고 거의 다 실천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신’이시라 인간의 육신과 안 통하니,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또 ‘꿈’으로도 계시해 주시고, 생시에 ‘만물’을 통해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자기가 정신일도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는 감동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하신다.

12. <목숨 걸고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

13. 하나님은 ‘절대 법칙의 존재자’이다. 그 법칙을 사용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신다.

14.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적용된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 고로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라면 해야 성공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면 안 해야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동일하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대 법칙>이다. 이 ‘절대 법칙’대로 행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도 부자가 되기도 하고, 명예를 얻고 좋은 집을 짓고 살기도 한다.

15.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라.” 하고 감동을 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면 “하지 말아라.” 하고 감동을 주신다. -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

16.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시키신 대로 하면, 얻는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아는 것이 그리 어렵다. 고로 이것을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알려 주신다.

17. 어떤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고 화를 받기도 한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알려 주시니, 기도하여라.

18. <하나님의 절대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니,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법칙’을 사용해서 잘되기도 한다.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나. 그들 중에 재벌, 명예가도 많다. 모두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 성공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대로 행한 것이다. 다만 이들은 그 삶이 ‘육신 세계’에서 끝난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산 자들>과 <믿지 않고 산 자들>의 두 세계를 비교해 보아라.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주와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산다. <하나님과 주를 안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고, 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좇고 사랑하며 즐기고 산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 것’을 ‘죄’로 보시고 심판하신다. 고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갈려 간다. 하나님은 그가 보낸 자와 함께 엄격히 심판하신다.

19. <우상을 믿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 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못 막는다. 절대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우상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죄’로 심판을 받고 사망권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나 여호와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영은 이미 지옥이나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갔다. 고로 그들은 나 여호와와의 심판을 못 막는다.”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우상의 주체가 되어 행한 자들’을 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제대로 믿지 않은 자들은 그 영이 사망으로 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허락을 받고 사명을 받아 ‘영의 세계’에 다니는 자들은 지옥이나 각종 고통의 세계에 간 자들의 영을 본다. 모두 본 것이 같으니, 확실하다.

20.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절대 법칙’대로 그 영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망권 지옥’으로 간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지옥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깨달아라. 모르면, <자기 영>이 내일 ‘지옥’에 가는데도 좋은 세상에 간다고 하며 좋아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섬기지 않고, 이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아서 그를 통해 자기 죄를 씻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천국에도 못 간다. <죄 문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해결을 못 해 준다.

22.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23.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죄값’을 받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

24.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신다. <죄>를 지으면, 절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고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해결된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다. 주께 고하고 해결해야 하나님도 마음을 놓으신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절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야 된다.

2. <해야 될 일>은 자기가 하든지, 혹은 시켜서 할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하든지 절대 해야 된다. 상황상 어려워도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 절대 해 달라고 해야 된다.

3. <해야 될 일>이면, 누가 하든지 반드시 해야 그 일이 되어 있다. <안 해 놓은 것>은 안 되어 있다.

4.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법’이다.

5. <하나님 나라>는 선하게만 산다고 해서 가는 곳이 절대 아니다. <절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6. <세상의 만 가지의 죄>가 모두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은 죄’다.

7.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은 죄>는 ‘착하게 사는 것’이나 ‘선하게 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8.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하게만 살면,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자들이 가는 천국’으로는 못 가고 그 영이 ‘임시로 대기하는 영계’로 간다. 마치 세상의 감옥에 갇혀 있듯 ‘영계의 대기소’에 있다가 그곳에서 행위대로 각각 해당되는 영계로 나뉘어져 간다. 영계의 대기소에서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구원받기까지 긴긴 세월이 가게 된다. 그중의 많은 자들은 아예 ‘흑암 세계’로 가게 된다.<영계의 대기소>에 있다가 다시 기회를 얻고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이유를 영계에서 보니, 자기가 좋은 대로 편히 사는 것을 좋아하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잘 안 되는 것이었다.

9.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법대로 자기를 갈고 닦으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낙으로 삼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뜻’대로 행하여 자기 영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살림을 장만하는 데 재미 붙여 살듯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단계까지 오르기가 어렵다. 그러니 힘들다고 포기하고 다시 사망으로 한 단계씩 내려간다. 거기서도 다시 기회를 주지만, 더 어렵다.

10. 하나님은 그 영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실 때, 절대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 이는 절대 하나님의 법이다.

11. 영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과 그가 이 시대에 보낸 자를 믿고 산 자들의 영>은 ‘황금성 천국’으로 가 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안 믿고 산 자들>은 세상에서 돈도 벌고 명예를 얻으며 아무리 잘살았어도 ‘하나님과 주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못 받고 그 영이 ‘사망의 세계’로 가 있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간 것이다.

12.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며 산 자들>이 가는 좋은 세계나 특별한 세계는 없다. 그들이 가는 곳은 ‘영계의 대기소’이다. 이곳은 구원받고 가는 세계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세계>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 그 뇌가 이미 ‘자기가 믿는 우상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하고 그릇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모르는 자의 생각’과는 다르다.

13. 굳이 영의 세계에 가서 안 봐도, 꿈을 통해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혼>들이 활동하며 사는 세계다. <영>들은 그 위의 단계 세계에서 활동하며 산다.

14.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모 성령님과 성자>만이 ‘절대신’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외에 믿고 섬기는 신들은 모두 ‘우상’이다. <우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고로 삼위는 그 행위대로 형벌을 주신다. 삼위는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믿고 따르도록 세상에서도 기회를 주시고, 육이 죽어서 그 영이 ‘영계의 대기소’에 갔어도 거기서도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 그런데 기회를 줘어도, 하나님을 안 믿고 그가 보낸 자를 안 믿고 산다. 그러다 육신이 죽고 영에게 기회를 줘어도 거기서도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듯 그 근성을 못 버리고 또 우상을 섬기며 믿는다. 모르면, 알 때까지 ‘자기 무지’로 행한다.

15. 오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 온전히 안다. 고로 그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16.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를 믿도록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며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래도 자기가 안 믿은 것이다. 자기가 전능자를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깨닫고 자기 책임만큼은 했어야 됐다. 깨닫고도 자기 책임을 안 했다. <인간의 무지>같이 억울한 것도 없다. 알면, ‘신’이 된다.

17.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부를 안고 살았어도, 지옥에 가면 그 고통으로 인해 세상에서 누리던 영광은 아예 생각도 안 난다. 자기가 불 속에서 고통받는데 과거 영광이 조금이라도 생각나겠느냐. <사람의 뇌>는 누구나 그때 자

기가 겪고 받는 대로 생각된다. 고통을 받으면, 과거에 누렸던 기쁨과 영광은 생각도 안 난다. 현실에서 받고 겪는 대로 느껴지고 생각된다.

18. 육신이 세상에 살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이 엄청난 고통을 기약 없이 영원히 받는다. <영>은 안 죽으니, 기약 없이 계속 받는다. <영의 세계>는 ‘생각 실상 세계’라 그 고통이 육신보다 수백억 배나 더 크다. <모르고 산 것>이 이같이 억울하다.

19. <황금성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다가 그 영이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 간 자들’은 ‘사랑의 세계’에서 삼위와 자기를 구원한 구원자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산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못 했던 것도 천국에서 ‘영’이 다 누리며 영원히 기쁨과 사랑으로 산다. 그 세계는 ‘집 한 채’가 ‘지구’보다 크고 비싸다. 그런 상상 못 할 크고 엄청난 집을 여러 채씩 가지고 산다. 그곳은 세상에 없는 보석들로 꾸며져 있다.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더 크고 좋은 집과 보석들을 만들기도 한다.

20. <황금성 천국의 집>은 ‘세상의 집’과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세상의 아무리 큰 왕궁이라도 ‘천국의 개인 집 한 채’와 비교가 안 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황금성 천국에는 ‘한 나라’만 한 정원을 가지고 사는 자들도 많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이 ‘지구’ 크기 정도 되는 자들도 많다. <영이 사는 세계>이니, 영이 좀 걸어 다니려면 그 정도로 커야 된다. 또 <황금성 천국에 사는 영들>은 ‘우주의 별과 같은 세계’를 한 개씩 가지고 산다. <천국>은 우주보다 몇 배는 더 크다. 무한한 세계다. 그러니 세상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가서 보아라. <휴거된 자>는 그 영과 육이 교통하니, 휴거된 자기 영에게 물어보아라.

21. <영>은 비행기나 빛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다. 어느 정도인고 하니, ‘자기 생각’과 같이 빠르다. 생각하는 동시에 그곳에 가 있다. 이같이 빠르니, 그만큼 영들이 사는 세계가 큰 것이다. 모두 황금 천국 세계에 와서 살라고 자기 육신을 통해 영을 구원시키고 휴거되라는 것이다. 그러면 <육>도 축복이고, <영>도 축복이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 전능자가 그 보낸 자를 통해 말씀하시면 모두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나 잠언을 쓰는 것, 노래를 작곡하는 것, 설교하는 것, 성경을 푸는 것, 계시를 받는 것, 강의하는 것 등 누구든지 나름대로 하면 한다.문제는 ‘얼마나 잘하느냐’다. <수준>이 문제다. 하되, 꾸준히 하되. 그리함으로 ‘자기 개성의 극’까지 하되.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가 된다.

2. <정신과 생각>이 ‘황금 덩이’다.

3. <정신과 생각>이 ‘자본’이요, ‘돈’이다.

4. 지금은 <정신과 생각>이 ‘중심이 되는 시대’다. <정신과 생각>으로 ‘재벌이 되게 하는 시대’다.

5. <구원과 휴거>도 ‘자기 정신과 생각’에서 좌우된다.

6. <정신과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콘크리트 반죽이 굳지 않은 상태와 같아서 되는 것이 없다.

7. <자기 정신과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정신과 생각’으로 일체 돼야 한다.

8. 하나님은 선지자들이나 메시아에게 늘 말씀하시길, “정신과 생각이 쇠같이 단단하여라. 악어 등같이 강하여라. 반석과 같아라. 담대하여라.” 하셨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길,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혜다.” 하셨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도 “육신의 고통을 주는 자보다 마음과 영에게 고통을 주며 마음과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더 두렵게 보아라.” 말씀하셨다.

9. <진리>를 제대로 깨달음으로 ‘정신과 생각’이 굳건하여라.

10. <짐승들>도 정신과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아라.
11. 정신일도 하면,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고 ‘신’같이 환경을 다스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
12. <알고 행하는 자>는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보다 크다.
13.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을 간구하여 받아 보아라. 음식도 먹어 봐야 맛을 알듯, ‘그리스도의 정신과 생각’을 받아 봐야 안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정말 주와 함께 최고로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 보아라. 그리함으로 모두 ‘최고 삶의 작품’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라.

<2017년 12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표적>을 보려거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바로 ‘표적’을 본다.
2. <삼위와 주와 같이 사는 것>이 표적이니, ‘삼위와 주와 같이 사는 자’에게는 늘 표적이 일어난다.
3. 늘 주 안에 거하며 온전히 행하여라. 그러면 수시로 표적이 일어나서 얻게 되니, 늘 기쁘고 희망차고 “삼위도 주도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하고 자신을 갖게 된다.
4. <표적의 바구니>를 들고 삼위가 하신 말씀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정직하게 행해 보아라. 그러면 어느새 ‘표적의 바구니’가 묵직해진다.
5. <표적을 일으키는 자료>는 ‘자기’에게 있다. <자기>가 먼저 표 나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표적을 보이면,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 주신다.
6. <삼위가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표적’이다.
7.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표적의 삶을 사는 것’이다.
8. <못한 것에 비해 잘한 것>이 ‘표적’이다.
9. 먼저는 ‘자기 자체로 표적’을 일으켰다.
10. <월명동>도 ‘표적’을 일으켰다. 가만히 있는데 표적이 일어났느냐. 행하니 되었다.
11. 하루는 하나님께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시간을 칼같이 꼭 지켜라.” 하셨다. 고로 그 시간에 다른 것을 안 하고 그 시간에 해야 할 것을 하며 시간을 지켰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이제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니, “네가 칼같이 시간을 지킨 것이 곧 표적이다. 내 말대로 하는 것이 표적이니, 네가 내 말대로 행하며 계속 표적을 일으켜라.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하셨다.
12.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하나님은 구상을 주시며 “이리해라.” 말씀하시고, 선생은 그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니 ‘표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표적’이다. 삼위는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신다.
13. 사람들은 자기 인식으로 ‘안 된다.’ 생각하고 잘 안 한다. 그러나 부딪혀서 해 보면, 쉬운 것이 많다. <생각>과 <실체>는 다르다.

14. 한번은 ‘이 사막 같은 곳에 무슨 큰 돌이 있겠어? 모래도 큰 모래가 없겠다.’ 생각만 하고 오래 기도만 했다. 그 후에 현실로 나가서 그 환경에 부딪혀 봤다. 그때도 ‘이런 사막 같은 환경에서 형상석을 찾기는 정말 힘들겠다.’ 생각했다. 그러면서 계속 길을 가고 있었는데, ‘큰 돌’이 보였다. 모래가 뭉쳐져서 산석(霰石)처럼 된 돌이었다. 그 형상이 ‘사막의 장미’ 같았다. 이 돌은 그냥 길을 가다가 주웠다.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 쉽게 해결됐다. 이같이 섭리사에도 현실과 부딪혀 보고 행해서 ‘표적’이 일어난 것들이 너무 많다. 저마다 모두 축복해 줬으니, 자기에게 준 것을 다 얻도록 행하여라.

15. <자기가 처한 환경>이 사막이든, 광야든, 시골 산골짜기든, 삭막한 도시든 따질 것도 없다. <환경과 위치>에 상관 없이 하나님과 주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행하면, 주신다.

16. 100% 행하면, 100% 된다.

17. <농사를 지을 때>도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미약하나, 계속 가꾸고 키우면 거둘 때는 ‘수백 배 큰 열매’를 거두게 된다. <농사의 표적>이 일어난다. 이같이 모두 처음에는 미약하나, 계속 행하면 ‘표적’을 일으키게 된다.

18. <월명동 나무들>도 처음에는 ‘도토리 키 재기’였다. 사람 키보다 조금 크거나 조금 작았다. 어떤 나무는 다리 사이로 넘어 다니기도 했다. 처음에는 “크다. 멋있다.” 하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다른 산에 있는 나무들에 비해 월명동 나무들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거름 주며 키우자.” 하시어 거름을 주며 키웠다. 그러면서 ‘언제 이 나무들이 커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궁을 만들지? 크다 보면 내가 다 늙겠다. 크는 데 60년이나 걸리는데...’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총동원해서 말씀하시길 “작은 나무가 한 번에 큰 아름드리나무로 클 수도 없고, 만일 한 번에 다 자란다고 해도 그러면 ‘자라는 과정’을 볼 수가 없게 된다. 지금은 사람도 없으니 그늘이 필요하지도 않다. 전도하면서 나무도 키우고 가꾸자. 그러면서 돌도 쌓고 여기저기 한 아름 되는 나무들도 가져다 심자. 그러다 보면 앞산과 뒷산에 심어 둔 소나무도 훌연히 커서 숲이 되고, 낮에도 다니기 무서울 정도가 된다. 먼저 국내 선교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자.” 하셨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대로 행하며 한 시대가 가니, 마치 소년, 소녀들이 커서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40~50세가 되듯 작은 소나무들이 모두 그리웠다. 이제는 나무들이 한 아름이 넘어 안을 수도 없다. 계속 무성하게 크고 있다. 그 정도면 ‘하나님 성전의 소나무’로서 위치를 갖췄다. 그리고 ‘돌’도 갖추고, ‘나무’도 갖추고, ‘물’도 갖추고, ‘광장’도 갖추었다. 사람도 차고 넘치니, ‘사람’도 갖추었다. <나이 먹은 자들>도 앞으로 수십 년은 쓰고 가고, <이제 섭리사에 온 자들>은 50년 이상 쓰고 가고, <이제 태어난 자들>은 100년씩이나 쓰고 간다. 그때가 되면, 소나무들도 모두 두 아름 이상 될 것이다. 더 큰 표적을 보고 누리려면, 더 키우고 가꾸며 수고하여라.

19. <당세에 역사의 열매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표적’이다.

20.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커서, 당세에는 ‘뿌리는 것’밖에 못 한다.<이 시대>는 당세에 뿌리고 키워서 ‘휴거’를 이루고 누렸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다. 이제 ‘더 큰 표적’을 보려면, 각자 역사의 터전 위에 전도하며 행하기다.

21.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 달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행한 대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것이 없다.” 하셨다. 그러면서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사망을 이기고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22. 예수님은 욕신이 죄인의 손에 잡혀 죽고 3일 만에 영이 살아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이 ‘표적’이다. 예수님도 이제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다.

23. <요나의 표적>은 ‘행한 대로 보여 주는 표적’이다. 이 시대도 <하나님과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축복과 이상의 표적’을 보이시고,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심판의 표적’을 보이셨다.

24. <축복과 이상의 표적>은 모두 ‘조건을 세운 사명자와 그와 함께 조건을 세운 자들’로 인해 일어난다.

25. <섭리사>도 저마다 삼위와 주를 대하는 대로 ‘표적’이 일어난다.

26. <한국의 서해안 몽산포 밀물이 멈추는 표적>도 땅에서 사명자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니,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셨다.<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멈췄을 때>도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쓰고 유럽에서 행하신 표적’을 증거하니, 바닷물이 멈추는 표적을 보이셨다. 표적을 보려거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가 행하신 일’을 증거하여라. ◎ 나 머지는 내일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표적>은 마치 사랑하는 자와 살기 위해 먼저 ‘혼인 잔치’를 하는 것과 같다. <혼인 잔치>가 끝나면 신혼 생활을 하듯이, <표적>을 보였으면 그것을 얻고 쓰며 평생 살아간다.
2. <표적 잔치>가 끝나면, 그것을 통해 얻은 것을 ‘생활 잔치’를 할 때 쓰며 살아간다.
3.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기 전에도 먼저 ‘표적 잔치’를 했다. 평창동 전셋집에 있을 때 그곳의 조경을 가꿔서 쓰고,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을 깨끗이 치우고 닦아서 물을 대고 수영하며 썼다. 그때 ‘징조와 표적’을 보이시어 잔치하며 썼다. 그 후에 ‘월명동’을 얻고 ‘실체 하나님의 궁, 자연성전’을 건축하여 조경을 만들고 수영장을 만들었다. 이제 성약 역사 천 년 동안 쓰며 누린다.
4. <표적>은 작게 ‘축소판’으로 보이신다.
5. <표적>을 그것 하나로만 보면, 그것 하나만 얻고 끝난다. <보인 것>을 통해 ‘실체’를 얻고 쓰면, ‘실체의 것으로 쓰고 즐기는 생활 잔치, 삶의 잔치’를 하게 된다.
6. <휴거된 영>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때가 됐는데도 기름을 넣지 않은 차와 같아서 그 차원에서 멈추고, 그러다가 점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7. 어떻게 해야 ‘황금성 천국’에서 안 내려오겠느냐. <육신>이 매일 밥도 먹고, 운동도 하며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듯이, <휴거된 자들>도 매일 삼위와 주와 사랑하며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
8. 가령 황태자와 결혼한 여자가 황태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위치를 박탈하고 감옥으로 보낸다. 이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법>이다. 이같이 ‘하늘 법’도 그러하다.
9. <휴거 700선>까지 가면, 그만큼 완전하다. 그렇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다시 내려온다.
10.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어느 날 루시퍼같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해서 ‘죄’가 된다. 루시퍼는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자기 이유를 대며, 하나님께 천국이 있는데 왜 다른 세계를 창조하느냐고 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사탄이 됐다.
11. 하나님 앞에는 계속 잘하기다.
12.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여 용서받고 자기가 조건을 세워야 된다.
13. 고생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서 잘 살다가도 운전하다 졸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 나서 해를 받고 죽기도 한다. <자기>가 운전하다 졸 것이다. 자기가 졸았지, 남이 졸아서 사고 나고 죽은 것이 아니다. 이같이 <신앙>도 ‘자기가 잘하기’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도 하고, 해도 받고, 자기 신앙을 죽이기도 한다.
14.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리 만든 것이다. 섭리사에서 그들보고 악평하라고 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행하다가 그리된 것이다.

15. <복>도 <화>도 알고 보면 다 ‘자기의 행함’으로 좌우된다.

16.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오니, 할 때 앞날에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하여라.

17. <난을 볼 줄 모르는 자>는 ‘희귀종 난’을 봐도 모르고 대한다. <희귀종 난>은 3억까지도 간다. 난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각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을 보고 ‘희귀종’ 취급을 하고, ‘왕’ 취급을 한다.<메시아>도 사람이니, 똑같이 생겼다. 그러나 ‘특성’이 있다. 곧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자는 그가 ‘신’이 되어 행하게 가르치셨다. 고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인봉을 풀고, 시대 문제를 풀어서 왕 중의 왕이 되었다. 그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핵으로 이루고, 성경의 예언을 이룬 성취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가 세운 업적이다. 하나님은 땅에 보낸 한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

18. <월명동에 있는 돌들> 중에도 ‘왕돌’이 있다. <형상이 있는 돌들> 중에도 최고 특이한 형상을 가진 돌이 그중에서 ‘왕돌’이 된다.

19.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따지지 말고 ‘현재’에 무엇을 하는지 보고 행하여라.

20. 과거에 서울 압구정동과 삼성동은 모두 논이나 과일 밭, 잡초 밭이었다. 현재는 빌딩과 집을 지어 놓으니 번쩍거린다.

21. 사람도 과거에 못살거나 못 배웠을 때, 어렸을 때는 ‘잡초 밭’같으니 ‘잡초 밭’대하듯 했다. 그러나 현재는 ‘황금 땅’이 되어 빌딩을 짓듯 했으니 ‘황금 땅’대하듯 한다.

22. <월명동>도 과거에는 썩은 물로 냄새가 나고, 잡초와 엉겅퀴가 무성한 지역이었다. 지금은 그곳에 ‘하나님의 궁’을 건축해 놓으니, ‘성약역사 황금 땅’이 되어 귀히 대한다.과거를 보고 대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미련하고 무지한 자’로 보시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신다. <사람>도 그러하다. 과거에서 변화되었으면, 현재 변화되어 행하는 대로 대하여라.

23. 과거에는 보잘것없고, 지나가다 쳐다보지도 않던 소나무가 지금은 거목이 되어 ‘표상 솔’이 되고 ‘섭리사 천연기념물’이 됐다. <과거>와 같이 대하면, ‘제대로 못 보는 자’요, ‘무식한 자’다.

24. <형상석>도 과거에 몰랐을 때는 ‘막돌’로 대했다. <알고 귀히 대할 때>와 전혀 다르다.

25.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새 시대’로 오니, 하나님도 주도 그를 ‘사도’로 대하셨다.

26. 모두 ‘현재’를 보고 대하여라. 과거를 따지지 말고, 현재 변화되고 행하는 대로 귀히 대하여라.

<2017년 12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실제 몸>으로 재 보고 달아 보고 확인하지 않아도,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마음’으로 느껴서 확인하는 것도 있다. 모두 다 하나의 확인이다.

2. <먼 곳에 있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거나 ‘생각’으로 확인해도 근거에 의해 확인한 것이 된다.

3. <거리>를 1mm까지 완벽하게 확인하고, <무게>를 1g까지 완벽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실제 몸이 가서 재 보고 달아 보고 확인해야 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멀리서 ‘눈’으로 봐도 알고, 혹은 안 보여도 ‘생각’으로 확인하고 아는 것이다. 더 완벽하게 확인하려면, 기도하여 ‘혼과 영’이 가서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성령과 주와 함께 확인하면 천 리나 떨어져 있어도, 혹은 지구 먼 곳에 있어도 ‘계시와 영감’으로 깨닫고 확인할 수 있다.

4. 생활 속에서도 자기 몸이 아프면, 눈으로 안 보여도 ‘신체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병

원에 가서 확인하지 않아도, 자기 몸이니 ‘느낌’으로 쉽게 알게 된다. 지체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5. <육신>도 상대와 서로 ‘느낌’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고, ‘각종 근거’를 가지고 아는 것이다.

6. <자기 영적 상태나 혼적 상태>를 안 봐도, ‘육의 행위’에 따라 느껴 알 수 있다.

7. 제대로 안 하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제대로 된 것이 없듯이 ‘현재 자기 행위’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게 된다.

8. <목적했던 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도 ‘현재 하는 것’을 통해 알게 된다. <구체적인 것>은 실천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뿐이다.

9. <내일>을 살아 보지 않아도 ‘오늘의 행위’를 통해 ‘내일’을 알 수 있다.

10. 사람들은 흔히 “미래는 살아 봐야 안다.” 하지만, 미래를 살아 보지 않아도 ‘현재 사는 것’을 통해 90%는 보편적으로 알게 된다.

11. <구시대가 새 시대를 못 맞을 것>도 ‘과거에 살아온 것’을 보고 이미 알았다. 하나님은 성경에 양면성을 두고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주를 맞고 제대로 하면, 주가 십자가를 안 지고 영광의 주가 된다. 만일 주를 못 맞고 제대로 못 하면, 주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도 그 행위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살게 된다.” 하셨다. 예수님을 맞고 따른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시대의 구원을 이루며 갔고, 예수님을 안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신약급’ 구원을 못 받고 ‘구시대 구약 주관권’에서만 살다 끝났다.

12. <주를 맞지 못한 자>는 ‘자기가 원하던 소원을 못 이루고, 희망만 하다 끝나는 자’와 같고, <주를 맞은 자>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고 영원히 누리며 사는 자’와 같다. 이는 육의 세계에서도 그러하고, 영의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13. <육신>이 주를 못 맞았는데, ‘영계’에서는 맞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것은 영의 세계에 가 봐야 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육신이 죽고 영의 세계에 가서 보지 않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여 줘서 알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통해 가르쳐서 다 알게 했다.

14. <영>은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주관권에 가서 산다.<육의 세계>에서도 ‘자기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위치에서 살듯이 영의 세계도 그러하다. 자기 행위대로 얻고, 그에 해당되는 위치에 가서 산다. 하나님은 이같이 질서를 정하셨다.

15. <영의 세계>는 행한 대로 자기가 거할 위치가 결정된다. 모두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자기 행위의 대가’이니, 인정하고 산다.

16. 자기가 힘들지만 ‘새 집’을 짓고 살면 그만큼 편하고, 힘들다고 새 집을 안 짓고 ‘옛날 집’에서 살면 그만큼 불편하다.이같이 세상에서도 자기 행위대로 얻고 산다. 고로 누구 탓도 못 한다. 자기가 몰라서 그리 행한 것만 탓한다.

17.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왔지?” 하며 불평하며 사는 자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도왔다고 하며 기뻐 감사하며 사는 자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하며 사는 자들도 있다. <자기 행위> 더하기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선의 세계’로 결정되어 가고, <자기 행위> 더하기 <사탄의 역사, 악인의 역사>로 인해 ‘악한 세계’로 결정되어 간다. 이 <천륜의 법칙과 순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

18.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대하신다. 다만, 사람들이 공의롭게 행하지 못해서 그 행위대로 ‘악한 세계’로 간다.

19. <공의롭지 못하고 불의의 편에 서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줘도 안 하니, 그 행위대로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20. <자기 행위>로 인해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 불의와 악을 행하는 것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가시가 찌르는 고통을 받게 된다. <사망의 길>을 가면서 1차로 고통을 받고, 그때도 회개를 안 하면 그 대가로 인해 때가 되어 선악 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이란,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격이다. 하나님의 세상이니,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듯 하나님은 심판을 꼭 하신다. <때>가 되었는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세상이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죄악으로 더러워지기 때문이다.

21. <죄와 의의 대가>를 모르고 생명길을 못 찾아 죄 속에 사는 자들을 찾아 구원해 주어라. 너희는 죄 속에서 나왔으니,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어라.

22. <세상에 있다가 섭리사에 온 자들>을 보면, 인생길을 찾으며 자기를 도울 자를 기다리던 자들이 많다.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전도자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신다. 고로 말씀을 듣고, 이 길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깨달았다고 하며 선생에게 편지가 온다. 하나님이 이끄시니, 자꾸 돌아다니며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과 연결이 안 된다. 세상에 교회가 수만 개가 있는데 어떻게 섭리 교회를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 섭리사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 격이다. 그러니 ‘구원자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기 쉽다. <이단들>도 구름같이 돌아다니며 이야기하니, ‘인생길을 찾는 자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간다. 따라가서 그 종교 안에서 크니, 마치 결혼해서 평생 살듯 그 족속이 되어 평생을 산다. 한번 그 길로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섭리사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혼하고 오는 격’이니 100배, 1000배 힘들다. 우상 종교나 이단, 구시대로 가기 전에 확실히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몰라서 우상 종교나 이단, 구시대로 가지는 않는다. <물건을 안 산 자>에게 자기 물건을 소개해야지, <이미 물건을 산 자>에게 소개하면 참고로 들을 뿐이다. <종교를 택하지 않은 자>를 찾고, 혹은 이미 택했어도 만족이 없는 자들을 인도해 주어라.

23. 세상에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있으니, ‘자기 연못’에만 그물을 던지지 말고, ‘사망의 세상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24. 절대적으로 행해야 절대적으로 된다.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은 ‘개인 전도’를 넘어서 ‘무리 전도, 청중 전도’를 하는 때다. 시대가 그러하다.

2. <이단들>은 인터넷에 모두 올려서 전도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많이 간다. 그런 것은 교단이 해 주어라. 늘 있는 고기만 쳐다보느냐. 그 인원을 가지고 하늘을 맞으려느냐. 놀라게 하고 주를 맞으라.

3. 어떤 자는 하루 만에 150명씩 전도해서 집회 때 데리고 왔다. 그러니 그 교회가 10년 동안 한 만큼을 한 것이다. 모두 이같이 해라.

4. 어떤 자는 인터넷으로 인원을 모아 놓고 복음을 못 넣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넣으려면 잘 안 된다. 아예 아기 때부터 젖을 먹이며 키우듯, 아예 처음부터 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5. <섭리사>는 ‘남시질하는 자’는 많은데, ‘그물질하는 자’가 적다. 그러니 ‘하나씩’ 낚는다.

6.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지도자의 운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더러는 자기 신앙이 힘들어서 못 하기도 한다.

7. <새 역사>는 ‘새 차’와 같아서 구시대같이 행해서는 운영이 안 된다. <결혼 전>에는 ‘아르바이트(part time job)’를 하면서 살아도 개인 경제가 운영이 된다. 결혼하면, 가정을 꾸리게 되니 ‘직장’을 다녀야 가정 경제가 운영이 된다. <새 역사>는 ‘하늘 신부’가 되어 결혼해서 사는 시대다. 고로 구시대와는 ‘뛰는 방법’도 달라야 된다.

8. <이단들>은 ‘관리’를 안 한다. 그만큼 세뇌를 해서 거기서 안 나가기 때문이다. <섭리사>는 그리 하늘 말씀을 주고, 계시를 줘도 수시로 나간다. 이는 말씀을 그리 전해 줘어도 제대로 못 넣으니, 말씀이 약하기 때문이다. 집회하는 자들, 순회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모두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라. 말씀이 안 가면, 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다. 모두 <말씀의 불>을 붙여라.

9. <개인이 힘들 때>도 ‘말씀’을 해 주니 살아났다. <분위기로 살리는 것>은 그때 순간이다.

10. <이단들>은 전체가 모두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니 사람들도 “뭐가 있나?” 하고 가 본다. 가서 보면, 그냥 돌아오는 자가 거의 없다.

11. <교회>도 ‘새로운 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야지, 다른 데 있다가 전입한 자들로 채운 것은 안 된다. <전입>은 제하고, ‘새롭게 전도된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12. <선교가 안 되는 교회>는 ‘선교하는 자’로 교체도 해 주어라. 선교가 힘들어도 목회를 맡아 될 때까지 뛰고 달리며 행하는 자들도 있으니, 계속 주와 함께 끝까지 실천하여라. <올해>는 ‘실천의 해’다.

13. <이 시대>는 ‘머리’로 싸우는 시대다. 민족도, 세계도, 종교도 그러하다. <악평자들의 썩는 머리>만도 못하면 늘 당하고, 제재를 받는다.

14. <더 빨리 행하기>다.

15. <사명자>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속한 생명들’을 위해 때가 되면 심판을 한다.

16. <악>만 신경 쓰다 보면, 할 일을 못 한다. <생명>을 구하며 담대히 행하여라.

17. <악>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지 못했으면, 섭리사가 이같이 클 수 없었다. 환난, 핍박으로 풍랑이 쳐도, 그 바람을 이용하여 더 행했다.

18. 어떤 자는 <악>이 자기를 건드리니, 사슴이 뛰듯 더 뛰고 싸워서 이겼다.

19.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 잠을 깨우게도 하신다. <잠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쏜다.” 하였다.

20. 담대히 행하라고 하니, 길을 가는 악인들을 붙잡고 싸운다. 이는 미련한 자다. 그때는 고생돼도 돌아가야 된다. <악인들이 덮쳤을 때> 그때 담대히 행하여 싸우라는 것이다.

21. 어떤 자는 나이가 30, 40세가 됐는데도 집에서 핍박한다고 당하고만 있다. 이런 자는 나이가 80세가 돼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때는 고생돼도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 지혜롭게 행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라.

22. 선생도 기도하며,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가정 핍박을 이겼다. 결국 부모도 ‘의’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동안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시대 열매를 맺고 가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가정 핍박>은 ‘기성 세계의 표상’이 된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오는 자는 오는 대로 뜻을 이루고 가고, 안 오는 자는 안 오는 대로 늙고 끝난다. 표상으로 보였다.” 하셨다. 그 말씀대로 됐다. 핍박이 끝나고 섭리사를 뿔으면 못 했다. 핍박으로 인해 산에 가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를 다녔다. 그때 어머니는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종일 받을 매서 먹고 사는데 너는 전도해서 생명들을 구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너를 먹고 살게 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평생 그리 사냐? 결혼도 하고 네 집도 짓고 정착해서 살아야지.” 했다. 나로서는 백만 분의 일도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고로 내 인생은 내가 살겠다고 했다. 그러니 어머니는 부모로서 해 줄 말을 했으니,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 내가 말하길 “사람들이 나를 구름같이 따라오니 걱정하지 마세요. 집도 지어서 어머니 살게 해 드릴게요. 그러니 어머니는 밭도 매지 말고 다 집어던지고 나 따라서 전도해요.” 했다. 그때 할 말을 다 해 놓았다. 그리고 후에 그런 때가 오니, 어머니는 “그때 네 말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했다. 모두 시대를 만났으니 하나님과 주와 함께 자신 있게 해라. 하나님과 주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몰라서 못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주를 만나서 알고 사니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된다.

23. <핍박>도 하나의 계절로 보아라. 겨울로 보고, 여름으로 보면서 이겨라.

24. 선생은 환난 때 최고로 연단받으며 배우고 깨달았다. 섭리사 40년 동안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많이 깨닫고 강행했다. 고로 많이 얻었다. 핍박이 없다고 잘 뛰는 것도 아니었다. 아픈 자들도 아플 때 제일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간다. 이같이 환난을 당하면, 스스로 더 뛰다.

25. <오늘> 제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뛰어야, 보나 마나 '내일'도 잘 뛰다. 모두 <자기가 할 것>을 '극'으로 열심히 하여라. 하나님은 주와 함께 도울 것이 없나 늘 살피시고, 성령님은 늘 같이 행하신다.

<2017년 12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무엇이겠느냐.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 이상 없이 아름답고 신비하게 창조한 것이니라.

2.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서 못 할 것이 없도록 그 기능을 창조해 놓으셨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전지전능하심>은 '사람과 천지 만물을 더 이상 없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니라.저마다 거울 앞에 가서 자신의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모양과 형상을 보며 하나님의 구상을 깨닫고, 평소에도 그 기능들을 보아라. 사람으로서 못 할 것이 없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4. <사람>은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모습과 구조'를 그대로 복사한 복사판이다.

5. <사람의 구조>는 같게 창조하시어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각자 개성대로 <생긴 모양>은 다르게 창조하시어 저마다 아름다운 특성을 가지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귀함을 알게 하셨다.

6. 성형 수술을 해서 얼굴을 예쁘게 만들면, '개성의 미'가 없어진다.

7. <개성의 미>는 '자기밖에 없는 형상과 모양'이다.

8. 자연적으로 생긴 지역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면, 그 개성과 모양은 없어진다.

9. <월명동>도 본래의 산 모양은 그대로 놓고, 끝자락에만 돌을 쌓고 나무들을 심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쓰도록 운동장을 만들고, 호수와 샘과 폭포수를 만들었다. 고로 하나님이 제1창조를 하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10. 사람들은 얼굴의 양 볼이 튀어나오게 하거나 턱이 가름해 보이게 수술하여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 수술하지 않아도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형이 잡히고 운동으로 얼굴과 몸의 형상이 잡혀서 아름답게 된다.

11. 하나님은 '자기가 가진 살'을 가지고 빼고 더하여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얼굴과 몸'이 되도록 수술하신다.

12. 어릴 때 아름답지 못한 얼굴도 성장하면서 변화되어 아름답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고 개성 있는 얼굴과 몸'이 만들어지도록 아예 창조해 놓으셨다.

13.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성의 얼굴과 몸매>를 '하나님의 구상'대로 두고, 거기서 자신이 운동도 하며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얼굴과 몸'으로 만드는 것이다.

14. <자기 얼굴과 몸>이 가진 '개성의 미'는 천하에 '자기'에게밖에 없는 것이다.

15. 성형 수술을 하면, 수술하는 사람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그러면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것같이 같은 얼굴이 된다.<자연석>은 그대로 두기만 하면, 세상에 그것 하나밖에 없는 ‘개성의 작품’이 된다. 그러나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며 자기가 손을 대면, 그때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본래의 모양과 개성’은 상실된다. <자연이 만든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못한 것이 있을 뿐이다. <더 못한 것>은 더 좋게 하려고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16. <성자바위>도 한쪽을 조금만 떼어 내면 형상이 확실히 보인다. 그런데 한쪽을 떼어 내면, 뒤쪽의 ‘코 형상’이 없어진다. 처음에 손을 댈까 생각만 했는데, 아예 흠도 못 씻게 하고 그냥 두라고 했다. 바위 위에 돌나물도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돌나물이 죽어서 흠과 함께 썩은 물이 내려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형상에 얼룩이 지니, 깨끗이 씻어 내라고 하며 흠만 씻어 내게 했다. 고로 지금은 흠물이 안 내려온다.이같이 <성자바위>는 손을 안 대니, 일곱 가지 형상이 모두 보인다. 하나님 형상, 성령님 형상, 성자 형상, 보낸 자를 상징하는 형상, 발바닥 형상, 치타 형상, 팬텀기 형상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형상이 있다. <세계 권투 왕을 상징하는 얼굴>이다. 1978년에 세계 권투 왕이 바뀌었는데, 이는 1978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바뀐 것을 상징한 것이다. 얼굴과 주먹 등 ‘권투 선수 형상’이 그대로 사진같이 보인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권투 선수 형상’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찾은 형상의 사진을 수십 장씩 보내왔다. 그래도 못 찾았다. 결국 안 보고 있는 선생이 찾았다. 항상 ‘주인’이 찾는다. <성자바위>를 껌 껌한 밤에 보면 ‘한 얼굴 형상 전체’가 보인다. 이는 밤에는 잘 안 보이고 무서우니, “껌껌한 밤에도 삼위와 주가 이같이 늘 너희를 쳐다보니, 너희도 늘 삼위와 주를 쳐다보아라.” 함이다. 연회장 쪽에서 보면 보인다.

17. <성자바위>는 ‘더 이상 없는 모양과 형상을 가진 바위’다.

1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것’을 ‘휴거’로 표현하신다. <휴거> 외에 ‘인간에게 주시는 더 이상 차원 높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하나님은 사람을 ‘휴거 차원’으로 창조하셨으니, 휴거 때 꼭 보낸 자를 100% 믿고 그와 절대 일체 되어 휴거를 이뤄야 된다.

19. <존재물>도 ‘더 이상 없는 모양과 형상’을 갖췄으면 ‘휴거’라고 표현한다.

20. 저마다 갖춰라. <휴거>되려면, ‘휴거 말씀’으로 갖춰야 된다.

21. 어떤 자는 자꾸 죄를 짓고, 이성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인본주의에 물이 들어서 그리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선교사나 목사 직책을 가진 자들이다. 더 이상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모두 직책을 내려놓게 했다.<자기중심으로 선교하고, 자기중심으로 사업하는 자들>은 정상이 아니다. <사탄의 주관>을 받고 <사탄의 몸이 되어 사는 자>다. 그러면서 편지는 아주 그럴듯하게 온다. 성령이 다 드러내 버리셨다. 이같이 <사고가 잘못되어 행하는 자들>은 모두 보고하여,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여라.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들이다.하나님은 새벽 말씀으로 드러내신다.

22. <썩은 물>이 정화되기까지는 어렵다. 쉬운 것이 아니다. <고통의 사망>에서 빼내서 살려 났어도, ‘육에 속해 살던 옛 생활’을 또 한다.

23. 어떤 자는 휴거시켜 났는데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를 중시하며 어둠의 생활을 하니, 휴거 선에서 내려와 자기 스스로 휴거를 이뤄야 한다. 휴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휴거 300선만이라도 해 보아라. 300년이 걸려도 안 된다. <주>로 말미암아 모두 휴거시켜 났어도 스스로 귀하게 안 여기니, 휴거가 상실된다. 영계를 보면, 자기 영이 ‘황금성 천국’에 마치 여행 갔다 오듯 하고 불구자가 되어 사는 자들이 많다. 휴거를 이뤘으면, 절대 마음과 뜻과 목숨 다 해 실천해야 된다.

24. <전능하신 삼위일체와 보낸 자>를 경히 여기고, <휴거>를 경히 여기는데 휴거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25. 어떤 자는 ‘수십억짜리 보화’를 불과 ‘몇 억’을 주고 샀다. <수십억짜리 보화>를 불과 몇 억으로 샀는데도 귀히 안 여기다가, 결국 자기가 산 값에 헐하게 팔았다. 다른 자가 그 보화를 사서 ‘수십억의 가치’대로 귀하게 쓰니, 그제야 가치를 알고 통곡했다. 자기가 미친 짓을 했다고 하며 다시 사려고 해도, 그때는 ‘수십억’을 줘야 된다. 이같이 <휴거>도

그러하다. 한번 상실하면, 다시 휴거되기 어렵다. 삼위와 주가 함께할 때 ‘하늘 운’으로 쉽게 휴거되나 ‘가치’를 모르고 상실하면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 그때는 ‘제값’을 다 주고 해야 되는 것과 같아서 3배 이상 값을 더 줘야 된다. 그때는 천 리 길을 걸어가듯 걸어가는 격이다.

<2018년 1월 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이치는 동일하다. 이를 알고 행할 것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하지 말아라.
2. 가령 땅에 물을 부으면, 낮은 데로 흘러가고 땅에 흡수된다. 이 공식은 온 인류 누구에게나 동일한 이치다. 실험해 볼 것도 없고, 실습해 볼 것도 없다. 고로 누가 “나는 모양과 형상이 다르니, 내가 물을 부으면 높은 데로 흘러가고 땅에 흡수도 안 된다.” 하면, 그런 자의 말은 안 믿는 것이 유익이다.
3. <불>은 어떤 불이든지 뜨겁고, 손이나 몸에 닿으면 탄다. 이것은 지구 세상 75억 명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역시 실험해 볼 것도 없고, 실습해 볼 것도 없다. 고로 누가 “나는 모양과 형상이 다르니 안 뜨겁다. 화상도 안 입는다.” 하면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불이 뜨거운 것은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성 이치’다. 이같이 <선>과 <악>도 그러하다. <선한 쪽>은 ‘선한 반응’이 일어나고, <악한 쪽>은 ‘악한 반응’이 일어난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통성 이치다. 이것을 알고 생각하고 행하여라.
4.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누구나 동일하게 같은 이치로 흘러간다. 다만 누구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서 안 하고, 누구는 마음과 생각을 못 다스리고 할 뿐이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자>는 마치 땅에 물을 부었는데 낮은 데로 흐르는 물을 발로 막아서 못 흐르게 하는 격이다. 이와 같이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성 이치’라도 ‘행하기’에 따라 달랐다.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두면, 물이 낮은 데로 흐르듯 흘러간다.
5. <말씀을 들을 때>와 <듣지 않고 떠난 후>는 다른 것이다.
6. <밥을 먹을 때>와 <배불리 먹은 후>는 생각도 다르고, 음식을 대하는 것도 다르다. 자기가 겪은 대로 다르게 느끼니, 그에 따라 ‘행하는 것’도 다르다.
7.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도 뇌와 몸이 느끼는 것이 다르니, 행동도 다르다. 이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공통성 이치다.
8. <인간>은 마음도, 생각도, 행하는 것도 ‘느낌’에 따라 다르다. <느낌의 세계>다.
9.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경도, 뇌 세포도 모두 느끼는 대로 반응한다.
10. <얼굴 표정>과 <행위>를 보면, ‘육적인 세계의 이성’을 느꼈는지, ‘영적인 세계의 사랑’을 느꼈는지 안다. 자기가 느낀 대로 몸도 생각도 반응이 일어나니, 파장에 의해 알고 행하는 것을 보고 안다.
11. 사람은 누구나 잘해 주면 좋아한다. 이는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성 이치’다.
12. 사람은 누구나 짠 것을 먹으면 짜다고 한다. 공통성 이치다. 이와 같이 <행함>도 그러하다. <선>을 행하면 ‘선한 세계’를 얻고, <악>을 행하면 ‘악한 세계’를 받고 끝난다. 행한 대로 ‘자기 행위와 같은 것’을 얻는다.
13.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그 사람을 좋다고 한다. 공통성 이치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보고 “나쁘다.” 하는 자는 ‘무지한 자’이거나 ‘정상을 벗어나 변질된 자’다.
14. <선한 쪽>은 ‘악한 쪽’을 싫어하고, <악한 쪽>은 ‘선한 쪽’을 싫어한다. 공통성 이치다.
15.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 하자. 이때는 그 사람이 좋다고 100번 말하면

자기 뇌의 생각이 ‘좋다는 쪽’으로 돌아간다. 만일 그 사람이 나쁘다고 100번 말하면 뇌 세포도, 신경도 ‘나쁘다는 쪽’으로 돌아간다. 이같이 <뇌>는 자기가 말하는 대로 생각이 돌아간다. 고로 <뇌의 생각>이 돌아간 대로 좋게, 혹은 나쁘게 결정하여 행하게 된다. 이때는 누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말해 줘도, 자기가 ‘나쁜 쪽’으로 생각한 대로 나쁘다고 믿는다. 반대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고 말해도, 자기가 ‘좋은 쪽’으로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을 좋다고 믿는다. 이같이 <뇌>는 한번 생각하고 결정하면, 100% 전환이 잘 안 된다.

16. <선의 존재>나 <악의 존재>나 모두 행위대로 얻는다. 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통성 이치다.

17. <콩>을 심었으면, 변함없이 처음부터 나중까지 ‘콩’으로 자란다.

18. <사람>도 ‘같은 족속, 같은 주관권의 사람’들은 같은 행위로 흐른다. 겉만 위장하여 달리 보일 뿐이다.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2. 자기가 스스로 선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고,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3. <기계가 작동하는 것>은 ‘기계를 만든 자’ 때문이다. <기계를 만든 자>로 말미암아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4.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덥고 춥고 계절이 가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리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해 놓았기 때문이다.

5. <태양>은 환하게 해 주는 등불 역할을 하고, 따뜻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태양>이 환하게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줬지만, ‘하나님’이 그리하도록 창조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환하게 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 주신 것이다.

6. 가령 부모가 거액을 들여 자기에게 집을 지어 줬다 하자.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추위도 더위도 해결하며 살았다 하자.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을 막아 준 것>은 ‘집의 벽과 지붕’이었지만 ‘부모’가 그리 편하게 살도록 해 줬다는 것이다. 부모가 집을 안 지어 줬으면, <집의 벽과 지붕>은 ‘모래나 흙, 돌, 나무’로만 존재했을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종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셨으니, ‘만물 자체’가 인간에게 해 준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다. <창조주>가 아니면 이같이 할 수가 없다.

7. 가령 물이 전혀 없는 곳인데, 자기 애인이 돈을 들여 200m를 파서 샘을 만들어 줬다 하자. 고로 그곳에서 늘 물을 떠다 먹었다 하자. <샘>에서 물을 떠다 마셨지만, ‘샘 자체’가 해 준 것이 아니라 ‘샘을 만들어 준 자’가 해 준 것이다. 자기 애인이 샘을 안 파 줬으면, 평생 도랑물이나 먹고 빗물을 받아 먹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 물을 마실 때마다 사랑하는 자가 해 준 것을 감사하며 먹어야 된다. 이같이 ‘만물 자체’가 해 준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하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행하지 않으셨으면, 평생 태양 빛도 못 보고 따뜻함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고로 ‘근본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

8.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통해 ‘자기’를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

9.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바위 절벽에 거액의 돈을 들여 길을 내 주었다 하자. 그런데 그 길을 다니면서 ‘바윗길’에게 고마워 절하며 ‘바윗길’을 섬기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길을 만든 자>에게 감사하고, <바위 절경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 안 된다.

10. 하나님이 한 단계 건너뛰어 행하시면, 사람들이 모른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것’만 안다.

11. <어린이아이들>은 엄마가 ‘직접 행하는 것’만 안다.

12. 하루는 엄마가 ‘아기를 보는 자’에게 아기를 맡기고 나가면서, 때 되면 아기에게 밥을 주고 물도 주고 나가서 구경도 시켜 주라고 했다. 그리고 <아기를 보는 자>에게 수고비를 주고 나갔다가 왔다. 집에 돌아와서 아기에게 뭐 했냐고 하니, 자기에게 밥도 주고 물도 주고 구경도 시켜 준 자에게 고맙다고 하며 절도 하고, 노래도 해 주고, 웃어 줬다고 했다. 엄마가 말하길, “왜 엄마에게는 전화도 안 하고, 고맙다고 안 했어?” 하니, 아기는 “엄마가 안 했잖아.” 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도 이같이 살고 있다. <이미 배워서 깨닫고 사는 자들>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감사하며 사랑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고, 모르는 자들을 위해 그들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에게 이야기하길 “네게 줄 장난감을 사려고 차 타고 멀리 다녀왔다. 그동안 너를 봐 줄 수가 없으니, 아기를 보는 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네게 밥도 주고 물도 주게 했다. 엄마가 ‘아기를 보는 자’를 쓰고 해 준 것이다.” 했다. 아기는 그제야 알고 엄마한테 수시로 감사하다고 절하고 노래도 해 주고 춤도 (춰) 췌다. 이같이 <하나님>은 ‘신’이라 직접 보이며 할 수 없으니, 만물을 통해 인생들을 도우시고,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 도우신다. 하나님은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행하시며 구원시키고, 휴거되게 해 주셨다. <사람들>은 ‘보이는 자’에게만 감사하며 절하고 산다. 이런 자들은 ‘어린이아이’와 같고, ‘인본주의적이며 육적인 신앙을 하는 자’와 같다. <장성한 자들>은 ‘근본자’가 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다. <근본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땅에 보낸 자’를 통해 해주시면 그에게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3. <인간의 죄>가 무엇이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천사를 보내서 돕게 했는데 그 천사를 사랑한 것이 죄였다. 지금도 하나님과 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며 살라고 사람을 보내서 도우시는데, ‘근본자 하나님과 주’가 자기를 도우려고 사람을 보내신 것을 모르고, ‘자기 앞에 도우러 온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다. 마치 어린이아이와 같이 <근본자 하나님과 주>를 모르고 ‘자기 앞에 보이는 자’만 섬기고 사랑하는 자는 메시아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 죄가 된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이다. 고로 구원도 휴거도 제대로 못 이루게 된다. <휴거 700선을 오를 때>는 절대적으로 ‘메시아 공적과 자기 공적’으로 가는 코스다. 그 전에는 ‘주’도 해 주고, ‘주가 가르쳐서 사명을 준 자들’이 자기를 도와주니, 그것을 자기가 행해서 휴거됐다. <지상의 근본자>는 ‘주’와 <그 위에 영원한 근본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근본자>를 모르고, 또 도와줬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 결국 ‘인본주의적인 신앙, 보이는 육적인 신앙’을 하다가 넘어지고 나가기도 한다. 어떤 자들은 이것을 스스로 겪고 깨닫고 편지가 온다. 자기가 몰라서 5년, 7년, 10년씩 이런 신앙을 했다고 고백한다. <주의 공적>으로 휴거 300선을 겨우 이뤘다. 여기에서 자기 공적은 100 정도다. <주의 공적>으로 휴거 300선을 이루게 해 줬으니, 휴거 700선까지는 자기가 계속 열심히 행해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신앙, 육적인 신앙을 하면 차원이 안 올라간다.

14. 사람들은 흔히 “내가 했다.”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자기 부모도 없고, 자기는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90% 이상 하신 것을 항상 알고, 땅에서는 주가 구원과 휴거를 이루는 데 90% 이상 한 것을 깨닫고 살아야 ‘신본주의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이 된다. <주 앞의 두 증인>같이 늘 ‘주’를 머리로 삼고 해라. 그러면 주께 영광이 가고, 주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그 영광이 간다.

15. <섭리사>에서 교회를 찾고 사게 된 것도 주는 이미 1년, 3년, 5년, 7년 전에 기도하며 조건을 세웠다. <근본자>가 해 주시니, 주는 먼저 기도 조건을 세우고, 찾는 자도 조건을 세우고, 사는 자들도 물질로 조건을 세워서 사게 됐다.

16. 이 말씀을 쓰기 전날 늦게 잤는데, 꿈이나 어떤 예시도 없이 새벽 1시 10분 전에 깼다. 깨면서 ‘내가 했어도 100%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 주신 것’임을 고백했다. 그러니 성령께서 “깨달았네.” 하셨다. 이것에 대해 왜 그런지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를 잠언으로 써서 가르쳐 준다.

17. <사람>이 음식을 먹고 ‘음식’에게만 감사하면, 먹고 나면 사라지니 ‘일순간 사랑’에 불과하다. 근본을 깨닫고 ‘주신 자’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 기쁨과 사랑이 지속되어 육 평생, 영 영원까지 간다.

18.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사다 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며 ‘음식’에게만 감사하며 음식만 사랑했다 하자. 먹은 것은 사라지고 결국 배설물이 되어 없어진다. <음식을 준 자>에게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면, 육신으로 평생 가고 영원까지 간다.

19. 항상 근본자에게 감사하여라. 주신 근본자를 생각하며 사랑하여라.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새벽에 또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근본자’이다. <주>는 ‘하나님의 육’이다.

2.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삼위를 사랑하고, <그 보낸 자>께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여라.

3. <육적인 자, 인본주의자>는 글을 쓰면서 ‘볼펜’에게 감사하며 ‘볼펜’만 사랑한다. <볼펜을 사 준 자>께 감사하고, <근본의 창조주>께 감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자’를 알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자가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자’이며, ‘매일 휴거 차원을 높이는 삶을 사는 자’다.

4. 하나님은 ‘구원자’를 가르치고 보내시어 그 육을 쓰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과 휴거를 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교회도 미리 준비해서 주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육을 쓰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절대 ‘영적인 신앙을 하는 자, 온전한 자’가 된다.

5. <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하다고 ‘차’를 쓰다듬으며 ‘차’에게 절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사 준 자’에게 감사하다고 하듯, <주>께 늘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고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삼위를 사랑하여라. 모두 이와 같은 신앙을 하여 ‘무지’를 장사 지내라.

6. <근본자>와 <주>께 감사하며 사랑하고, ‘심부름을 한 자’에게는 그 위치만큼만 감사하고 사랑하여라.

7.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점심밥을 갖다 주라고 하며 한 사람을 시켰다. 그 사람이 점심밥을 갖다 주는 수고를 했어도, 아들은 밥을 해 준 부모에게 즉시 전화를 해서 “도시락 만드느라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했다. 부모는 그 영광을 받고, 아들이 정말 잘 컸다고 하며 감격했다. 그러고서 아들에게 “그 도시락은 일반 도시락이 아니고, 특별히 시장에서 싱싱한 것을 사다 직접 만든 것이다. 심부름을 한 자에게 일부 돈을 주고 네게 갖다 주게 한 것이다.” 하고 도시락을 만든 사연을 이야기해 줬다. 이같이 하나님과 주도 ‘심부름을 한 자’에게 대가를 주고, 할 일들을 행하신다. 고로 <심부름을 한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만 하고,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절대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며 ‘휴거의 삶’이다.

8. 성경에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이미 샀을 주었다.” 했다. 이같이 <하나님과 주가 사명을 줘서 하는 자들>도 그 대가로 구원받고 휴거되었다.

9. <심부름꾼>에게는 이미 그 대가를 주고 시킨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10.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11. <감사>도 <사랑>도 <영광>도 ‘육’에서 끝내지 말고,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드리기다. 그러면 ‘영’도 ‘혼’도 차원을 높이고, 더 빛이 나고, 육까지도 형통한다. 이 삶을 사는 자가 주와 일체 되어 행하는 자다. 매일 이같이 행하여라.

12. 포도원을 맡겼는데 ‘소출’이 없으니, 주인은 포도원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었다. <후에 포도원을 맡은 자>는 ‘포도원을 준 주인’에게 늘 감사하고, 사랑하며 행했다. 그러니 소출이 많아져 주인에게 그 소출이 바로 들어왔다.

13. 오직 주께 감사와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감사와 사랑이다.

14.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샤머니즘 신앙을 하는 자들>은 ‘물’을 먹고 좋아하며 물을 섬기고, ‘태양’에게 감사하

다고 하며 태양을 신처럼 섬긴다. <태양>을 그리 사랑하면, 한번 태양을 껴안고 살아 보아라. 태양이 태워서 죽인다. <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물을 향해 1년 동안 고맙다고 해 보아라. 물이 대답을 하겠느냐. <태양>과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며 “알았다. 준 자를 생각하며 깨끗하게 귀히 사용하여라.” 하신다. 만물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고, 합당한 사람을 통해 깨닫게 말씀해 주신다.

15.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행함이 ‘샤머니즘 신앙을 하는 자들’과 같고, ‘원시 족속들’과 같다.

16. 의사가 병을 치료해서 고쳤으면, 의사에게는 기본 도리상 감사해하고, 집에서 도와준 부모에게는 더 감사해하고, 근본적으로 생명을 치료해 주신 ‘전능자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근본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니, 그 사랑이 육 평생, 영 영원까지 간다. 병을 고치면, 의사는 돈을 받고 끝나고, 부모는 나이 들어 죽으면 끝난다. 그때 허공에 대고 감사하다고 하며 살겠느냐.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께 계속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면, ‘사랑의 대상’이 되어 육 평생, 영 영원까지 사랑하며 살아간다.

17. <감사의 도>와 <깊은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라.

18. 오늘은 이 계시를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를 통해 주셨다. 평생 이 말씀과 같이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19. <주>가 ‘근본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춰진 보화를 받고 그날부터 감사하고 사랑하며 대화하니, 끝도 없이 주신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삼위가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귀히 쓰며, 매일 삼위께 기쁨과 사랑으로 대화했다. 이같이 <휴거를 이룬 것>도, <월명동을 개발한 것>도 모두 기쁨과 감사로 불태우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늘 사랑 대화로 불태웠다. 그러니 계속 깊이 깨우쳐 주시며 이야기해 주셨다. 이런 신앙을 하니, 시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서도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불타는 삶을 산다. 또 10년 동안 수천 편의 말씀을 써서 주고, 편지까지 수만 편을 주었다. 그리 말씀을 해 주고 편지했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다. 오늘 말씀대로 ‘실천 신앙’을 깨닫고 주와 같이 행하야라. <주>는 매일 이같이 행하니, 대화 중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늘 말씀해 주신다. 고로 ‘말씀의 강’이 마르지 않고 흘러간다.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을 하는 것>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2. <생각>을 못 하면, 못 간다.

3. 항상 <생각>을 집중하여 ‘할 일’을 마련해 놓기다. <몸>은 실천하며 ‘갈 길을 가는 삶’이다.

4.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보통 것’밖에 생각을 못 한다. <한 차원 높여 깊이 생각하는 자>가 색다른 것을 생각하게 된다.

5. <생각>도 <몸>도 최고로 행해야 ‘최고 위치’에 가게 된다.

6. <자기 성공>은 자기가 차원을 높여야 이룬다.

7. <뇌 발달>을 안 시키고 해 봤자 그 수고가 별 유익이 없다.

8. <뇌>를 높은 차원으로 발달시키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가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끝까지 실천하는 것이다.

9. 하나님은 차원 낮게 못 하신다. 마치 <중장비 기계>가 작은 길을 못 가는 격이고, 팽이나 호미 역할을 못 하는 격이다. <하나님은 차원 낮게 못 하신다>는 말은, 곧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면 ‘큰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10. 어떤 일은 <큰일 하나>가 ‘작은 일 100개를 한 것’이 되기도 한다.
11. <일>은 하면 할수록 그 일에 대해 차원이 높아지고, 발달된다.
12.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생각나지 않으면, 일을 달라고 기도해라.
13. <할 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14. <일>이 없으면, 일거리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이 ‘일’이 된다.
15. <할 일>은 누구에게나 개성대로 있다. 하다 보면,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점점 커진다.
16. 처음에 일이 없으면 아무것이나 해라. 그러다 몸이 풀리면, 그때 제대로 할 일을 찾아라. 이렇게 시작하면, ‘일의 눈’이 떠지고 할 일을 찾게 된다.
17. 보고할 때 의무적으로만 하고 자기중심으로 하면, 성령도 주도 알고 갈 길을 막는다.
18. <제대로 한 것>만 남아진다.
19. <뇌>는 ‘예리한 신경 덩이’다. 다만 ‘일을 할 때’나 ‘생각할 때’나 ‘자극을 줄 때’만 예리하지, 그러지 않을 때는 보통이거나 무기력하다. 무기력하면, 한없이 시간이 가도 모른다. <뇌>가 잠을 자고 있으니 그러하다.
20. <뇌신경>을 가만히 두고 <생각>을 가만히 두면, 마치 정전 상태와 같아서 계속 잠을 자듯 가만히 있다. 깨워야 된다. 깨워야 보이고, 생각나고, 행하게 된다.
21. <뇌>를 가만히 두면, 하나의 뇌사 상태와 같다.
22. <자기 생각>을 ‘무한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써라.
23. <세상 사람들>은 뇌에 맛을 들인 대로 발달시켜 쓰고 산다. <영원한 것>이 아니면, 하나 마나다. 가다 끝나니, 끝날 때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못 한다. 그때는 뇌신경과 기억 세포가 다 죽어서 마치 뇌사 상태의 식물인간같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놀고 먹고 즐기며 여행 다니고, 돈을 벌어서 쌓아 두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는 한때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것을 두고 행하여라. 그러면 세상에서 욕이 행하며 누린 것도 ‘영’이 다 가지고 가서 그 삶이 ‘천국’에서 연속된다.
24. <영원한 것을 잡지 않은 자>는 허무하다. 그 삶이 자기 영혼을 영원한 어둠으로 가게 만들고 거기서 고통받게 한다.
25. <자기 영>을 구원시켜 놓지 않으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던 삶이 모두 ‘영의 고통’으로 뒤바뀐다.
26.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세상에서 별짓을 다 하며 누렸어도 남는 것이 없다. <세상에서 누리던 것>이 ‘고통’이 되어 영이 다 받는다.
27. <하나님 주관권 세계> 외에는 다 ‘극적인 고통의 세계’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이 ‘극적인 고통의 세계’로 간다.
28.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체제가 다르다. 딴 세상이다. 지금도 ‘육’은 육대로, ‘영’은 영대로 산다.
29. <영>은 ‘육의 행위’대로 형체가 변하면서 존재한다. 고로 <육신>이 전능자와 메시아를 안 믿고 살면, 그 영이 육신의 행위대로 형성되어 ‘사망권’에서 산다. 지금도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사는 자들>은 ‘사망권’에서 살고 있다.

30. <천국>도, <지옥>도 육신이 죽은 후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다. 현재 육이 살아 있을 때도 ‘영’이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31. <자기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에 가서 살고 있어도 모른다. 모르면, 자기 육신의 행위와 생각대로 ‘영’이 형성되고 있다고 알고 살아가라.
32. <육신>이 죽고 나서 ‘영’이 심판받고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매일 육도 영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33. 세상에 어떤 일도 보통으로 하면 보통으로 되듯이, 보통으로 믿고 행하면 그 영도 보통으로 형성된다. <전문적>으로 해야 표가 나고, 희망차다.
34. <육>이 행하는 대로 ‘영의 형체’도 ‘영의 미’도 형성되고, 영이 형성된 대로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간다.
35.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산 자들의 영>은 절대로 최고 좋은 영의 세계로 간다. 이는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다.
36. 인생,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보낸 자와 일체 되어 육도 영도 구원시키는 일이다. 이것을 제대로 못 하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누리며 살았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의 삶>은 ‘영원한 세계’에 비해 1분 정도 되는 ‘일생 한때의 영광’에 불과하다.
37. 자신이 행하면서 자기 혼도 영도 보아라. 어느 차원에 처해 살고 있나 볼 수 있다. 먼저 꿈을 통해 ‘자기 혼의 상태’를 보아라. 그러면 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곡식>도 씨가 땅에 떨어져서 크고 자라다가 ‘열매를 여는 기간’이 있다. 1년 중에 6~8개월 정도 되는 때다. 이때를 놓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와 같이 인생도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다. 곧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육신이 사는 기간’이다. 이때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끝난다.
2. <육신이 이 세상을 사는 기간>이 ‘구원받는 기간’이다. ‘영원한 세상을 얻는 기회의 기간’이다. 이때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믿고 사랑하며 행함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영이 ‘완전한 열매를 맺어 놓은 자’와 같다.
3. 0대 때, 10대 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힘들다. 나이를 먹고 하면, 그만큼 때가 지나갔기에 ‘하고자 하는 기회’를 놓친 것이다.
4. <지구 세상에서 최고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이루시는 ‘마지막 성약역사’에 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이때 하나님은 ‘최고 구원역사’를 펴신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섭리해 오셨다. 시대가 발달하듯 ‘하나님의 역사’도 지금 최고로 발달한 상태다. 하나님은 ‘최고 발달한 시대’에서 ‘마지막 최고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 목적을 이때 이루신다.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가르치고 키워서 성장을 다 하면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뜻’을 이루듯, 지금은 ‘최고 좋은 사랑의 역사’를 펴는 때다.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사랑하고 살면서 일생 동안 자기 것으로 삼고 사는 삶이다.
5.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으시다. 이는 ‘영원한 목적’이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삼위일체 중의 한 분이신 성자를 보내시어 ‘시대 구원자’를 가르치시고, 그가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행하게 하심으로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휴거로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차원 높여 역사해 오시고, 마지막 성약역사에서 ‘사랑 세계’를 이루고 ‘최고 사랑의 역사’를 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 사랑’이다. 절대 육도 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

들어서 사는 삶이다. 그러면 <육>은 땅에서 육 평생 ‘사랑의 삶, 휴거의 삶’을 살고,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영들>은 삼위와 주와 함께 ‘황금성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산다. 이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시대 구원자를 34년 동안 가르치고 키운 후에 시작하셨다.

6. <휴거>는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 곧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라고 한 성구다. (살전 4:17)

7. <휴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 <시대 주>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절대 실천하여 육도 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자만 휴거되어 ‘최고 사랑의 세계, 황금성 천국’에 간다. 고로 땅에서 육신이 ‘주’를 제대로 알고 그를 좇아 온전히 행해야 된다.

8. <성약역사>는 땅에서 1000년 동안 복음을 퍼 나간다. 이를 ‘새 시대 혼인 잔치 기간’이라고 한다.

9. <혼인 잔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과 주를 중심하여 사는 삶’이다. 새 시대에 와서 ‘주를 모시고 사는 삶’이다. <주>는 성자의 육신 된 자로, 신랑 입장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진정 사랑으로 대해 주고 서로 믿어 주고 위해 주고 섬겨 주는 삶’이다.

10. 하나님은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 육을 통해 ‘휴거 역사’를 펴신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으며 기다린다. <지구>가 ‘공중’이다. 인식이 잘못된 자들은 바로 하여라.

11. <영>이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으로 가니, 안 보인다. <행한 자>만 알고, <이룬 자>만 안다. <행하지 않은 자>나 <이루지 못한 자>는 자기 육도 영도 휴거를 못 이뤘으니 모른다.

12. 어느 시대 역사든지 ‘행하고 따른 자들’만 알았다. <그 주관권에 있는 자>만 차지한다. <태풍>도 전 세계적으로 부는 것이 아니다. 태풍이 온 그 지역만 분다. 이같이 <역사>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따라 그 주관권에 있는 자들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간다.

13.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역사하시며 가는데도 극으로 반대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고, 주가 어떻게 다시 오는지 몰라서 그리 반대하다가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고 그 행위대로 사망에 처해 산다. <아는 자>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 모세 때도, 예수님 때도 그러했다. 제대로 몰라서 역사를 못 따르고, 불신하고 반대해서 못 따르고, 들어도 안 믿어서 못 따랐다. 불신자는 ‘가나안 복지’에 못 간다. 그 후에 역사를 다 이루고 가는 것을 보고 오는 자들도 있다.

14. <섭리역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역사는 1000년 동안 간다. 당세 100년이 지나면, 튼튼한 거목이 되듯 한다. 월명동을 개발하여 표가 나게 빛이 나듯, 빛이 난다.

15. <당세>에 역사를 굳건히 해 놓아야 된다. 타 종교들은 때가 가면 갈수록 시들어 간다. <진짜>가 아니면, 갈수록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컸으니, 이제 가짜들은 죽어 간다.

16. <표상자>가 컸으니, 하나님은 그만 남기시고 가짜들은 정리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이같이 해 오셨다. 메시아만 온전히 안다.

17. <월명동 표상 숲>이 다 클 때까지는 옆의 작은 나무들도 같이 크게 났다. 산이 너무 험해서다. 표상 숲이 다 크고 나서, 그때서야 주위 나무들을 잘라 내서 깨끗이 하고 ‘표상 숲’이 돋보이게 했다. 이같이 영계도 그러하다. 때가 되면, 심판한다.

18. <한 사람>을 키울 때도 많은 자들 가운데서 키운다. 서로 같이 보고 크라고 그리한다. 다 크면, 데려다 쓸 곳에 혼자 두고 쓴다. <하나님>도 그리하신다.

19. <이단들>을 보고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악평, 핍박, 환난>으로 자기를 더 돌아보며 흠 없이 만들게 하시어 ‘택

한 자'만 혼인 잔치에 오게도 하셨다.하나님은 만사에 다 뜻이 있어 이리저리 행하셨다. 애인과 배를 타고 오는데 멀리 돌아서 온 것은 오는 길에 암초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곤충도 눈에 띄어서 방에 데려다 살게 하기도 한다. 다 뜻이 있어서 그리한다. <하나님의 뜻>만 잘 이뤘으면 됐다.

20. 하나님이 섭리사에 주신 것이 많다. 사용할 때가 되면, 같이 사용하게 한다. 성자가 주고 가실 때도 모두 같이 쓰라고 하셨다. <월명동>도 가치를 알고 쓰는 자만 자기 집같이, 자기 정원같이 귀히 쓰듯, <하나님이 섭리사에서 같이 쓰라고 주신 것>도 가치를 아는 자만 주인 되어 귀히 쓴다. ◎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전한 잠언에 이어지는 나머지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다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1월 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지구 세상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휴거를 이룬 자'같이 영원한 영광을 얻은 자는 어디에도 없다.
2. <휴거>는 '하나님이 최고 원하시는 목적'이다. 고로 <휴거>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토록 사랑하며 사는 것 외에 더 큰 영광은 없다. <이 시대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셨다. 월명동 개발을 다 하듯 이미 했다. 이미 혼인 잔치를 했으니,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3. <모르는 자, 무지한 자>는 같이 못 산다. 많은 시간을 줘어도 안 하니, 쫓겨나서 육신 일생 동안, 영 영원히 슬피 운다.
4. <휴거의 삶>을 굳건히 잡아라. 주가 세상에 없어도 육보다 '영'이 함께하며 더 돕는다.
5. <제대로 안 한 것>은 모두 깨지고 드러나는 역사다. 보아라. 휴거도 부활도 과거 구시대에서 주장했던 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시대가 가면서 다 드러난다. <새 시대의 해>가 떠서 그 주장들이 거짓임이 드러나니, "허무하다. 황당하다." 한다. <구시대>는 이미 서산에 해가 넘어가서 어둠에 묻히듯 하고, 때가 되어 밀물이 들어와 덮치듯 했다.제대로 알고 믿고 따른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라. 큰소리치며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모두 따라갔어도, 주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뜻을 따르며 왔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사는 시대가 갈수록 찬란하게 빛이 나고, 사막에 솟은 산과 같이 눈에 띄게 된다. 하나님이 주와 함께 역사하시는데도 그리 반대하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던 자들은 죽음을 맞고 끝났고, 살아 있어도 '산 시체'가 되어 육체만 굴러다닌다. 그들은 모두 '의인들이 길을 갈 때' 더 정신 차리고 가게 하는 데 쓰여진 것이다.
6. 선생이 10대 때, 동네에서 기성 신앙을 하던 자들이 내가 하는 일을 두고 "그게 아니다." 해도 나는 "이 길이 맞다. 후에 보아라. 그 날에는 모두 보게 될 것이다." 했다. 그때도 성자가 은밀히 인도하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잡고 가니, 그것이 '길'이 됐고 '생명'이 됐고 '진리'가 됐다.
7. 하나님은 해 줄 만큼 해 주시고, 도우시고, 지켜 주셨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껍데기에 빠져서 섭리사를 불신하고 나가 고서는 사탄과 반대자들과 악평자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며 계획적으로 악평만 한다. 그래도 주는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성령과 성자와 함께 할 일들을 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행하면서 얻을 것을 얻었고, 섭리사가 커져 나갔다. 시대가 갈수록 섭리사는 더 찬란하게 빛이 난다. 모두 멍쳐서 화평케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축복해 주신다.
8. <하나님의 것>이니, 막으면 심판이다. 하나님은 그동안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나 모두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때가 되니, 인생들을 '타작 기계'에 넣고 쪼개고 흡수신다.
9. <섭리사 말씀>은 온전하니, 영영하다.
10. <월명동 자연성전>도 '돌'로 건축해 놓으니, 1000년이 가도 튼튼하다. 비바람이 치면 돌이 매끈하게 닳아서 '자연미'가 더 빛나고, 소나무는 계속 커서 더 웅장하게 된다. <섭리사>도 이같이 된다. 고로 계속 전도해라. 섭리사를 크게 하는 일이다. 전체가 하면, 크게 표가 난다. 이때 주와 함께 해야 된다. 당세 때 해 놓아야 후대들도 기쁨과 희망이다.

11. <월명동 나무>도 어렸을 때는 표가 안 났다. 지금은 한창 크고 있다. 나무가 커서 한 아름씩 되니 보암직하고, 아름답다. 모두 표가 난다. 그러니 지금까지 큰 것만 봐도 힘이 나고, 기쁘고, 희망이고, 보람차다. <섭리사>도 그러하다.
12. <월명동에 돌을 쌓을 때>도 그때 어려움을 이기면서 했기에 그리 쌓았지, 지금은 그런 돌을 구하려고 해도 없다. <섭리사>도 그리 힘들었어도 그때 할 일들을 안 했으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렵다.
13. <월명동 자연성전>에 쌓은 돌 조경은 한국 어디에도 없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 또 월명동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장소’도 없다. <월명동>은 ‘시대 주가 태어난 곳’이다. 모두 아끼며 관리해 주고, 아직 못 한 것들을 단장하여라.
14.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요, ‘주의 몸’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안 뺏기고 믿고 따르니, 성전도 안 뺏겼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불신하여 뺏기니, 구약 때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을 뺏겼다. 사랑을 상징하는 전을 뺏기고 늘 통곡했다. 이 시대는 주를 안 뺏기고 행하니, ‘시대 에덴동산’도 찾고, ‘하나님의 시대의 전’도 안 뺏기고, 예루살렘 격인 ‘섭리사 교회들’을 다 사고 얻은 것이다. <주>를 안 뺏겨야, 개인도 이같이 된다. <주>를 뺏기면, 다 뺏긴다. 고로 절대 믿고 따르며 행해야 된다.
15. <신량을 뺏긴 자>는 슬피 울며 통곡하고, <신량을 뺏기지 않은 자>는 기쁨의 혼인 잔치를 하며 시대 뜻을 편다.
16. <주>를 안 뺏겨야, 하나님은 주와 의논하시며 계속 주를 통해 시대 예루살렘 격인 교회들을 주시고, 복음 역사를 펴 가신다.
17. 구 역사는 새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역사 전체가 이루는 것은 제대로 안 됐다. <성약굽>에서 이루는 것만 됐다. 기성인들이 받아들였으면, ‘기성의 시대 예루살렘’을 얻었다.
18. <성약의 예루살렘>은 ‘월명동’이다. 신부가 신량을 맞기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이다.
19. <월명동 하나님의 궁>은 하나님이 직접 구상하시고 만든 곳이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전’을 두시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예 자연에 전을 세우셨다.
20. <주>를 믿고 따라야 ‘자기 마음의 성전’도 사탄에게 안 뺏긴다.
21. 인생들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상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개인도, 가정도, 단체도, 종교도, 민족도 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상세계를 만들며 살다가 인생 해를 넘기고 죽음을 맞는다. <육신>이 ‘육의 이상세계’를 누렸어도, ‘영의 세계’를 못 얻으면 세상 사나 마나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낫다. 안 태어났으면, 사망으로 갈 일도 없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태어났으면, 전능자 하나님과 시대 보낸 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렸어도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고 끝난다. 한번 고통의 세계로 가면, 거기서 다시 못 나온다. 자기가 그 세계로 가고서 그제야 알고 나오려 하지만, 안 된다.
22. <천국>도, <지옥>도 세상에서 인생 100년 동안 살면서 알고 해결할 문제다. 모르고 살다가 죽은 영들은 “내가 왜 여기 왔지?” 한다. 모르고 살았어도, 자기 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자기 영의 형체가 만들어져서 ‘자기가 거할 영의 세계’가 결정되고 끝난 것이다. 그곳에서는 의를 행하면서 자기 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에서 육신을 통해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목욕탕에서 때 밀고 머리 감고 준비해야 그다음 암벽 코스도 가고 사막 코스도 간다. 먼저 씻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다음 코스로 가면,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으니 안 된다. 이같이 세상에서 메시아를 믿고 구원과 휴거를 이뤄야 자기 영이 형성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간다.
23. <영의 세계>는 ‘자기 영의 몸을 확대하여 전개한 세계’다. 자기 영이 형성된 대로, 자기 영의 생각대로 되어져 있다.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사는 영계>는 그 환경도 험난하고, 메마르고, 삭막하고, 거칠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사는데 천막이 다 떨어진 걸레 같다. 나무나 흙벽돌로 된 집도 나무가 다 썩고, 폐허 같다. 거기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계속 굶고 산다. 그들의 얼굴은 원시인 같고, 몸도 흉측하다. 또 다 헤지고,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닌다. 이런

자들만 모여서 산다.거기에는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있었다. 멀리서 보다가 점점 가까이 가 보니, 서로 좀 알아보고 거
기서 나오려고 했다. 그러니 그곳을 지키는 자가 알고 그들을 쳐다보았다.

24. <영계에서 본 것>은 그동안 설교로 모두 말했다. 마치 고통의 세계, 북한에 갔다 온 자가 직접 보고 와서 말하듯
하는 격이다. <안 가본 자>는 ‘갔다 온 자’가 이야기해도 실감이 안 난다. 자기가 생활 할 때 체험하고 겪으면 조금 이
해한다. <전쟁을 겪지 않은 자>가 전쟁에 대해 말하면, 실감이 안 난다. 또 <전쟁을 겪은 자>가 전쟁을 겪고 와서 이
야기해도, 거기서 느낀 것을 현실에서 말로는 다 못해 준다.

25. 겪어야 100% 안다.

26. <신앙>도 ‘겪으면서 하기’다. <겪은 자>는 영계도 보고 알고, 그리 뛰고 달린다.

27. 사람은 <생각의 강도>로 ‘차원과 급’이 결정된다. <생각의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할 일’을 두고도 안 해지고 1
년, 10년씩 미룬다.

28. <밥>을 굶으면 그만큼 배고픔을 느끼듯, <생각>도 10일씩 굶으면 그만큼 생각으로 느껴진다.

29. <생각>도 겪어야 차원이 높아진다. 높여야, ‘할 일’이 잘해진다.

30. <생각>이 확실해야 꿈도 확실하게 보인다. <생각>이 흐리멍덩하면, 꿈도 흐리멍덩하게 보인다.

31. <뇌>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수록 좋아진다. <생각>이 흐리면, 아이큐도 낮아진다.

<2018년 1월 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옆에 있어도 찾지 않으면, 없다.

2.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찾지 않으면, 없다. <사람>도 그러하다.

3. 옆에 있어도 ‘기억’에서 잊으면, 눈으로 봐도 모르고 눈으로 못 봐도 모른다. <기억>이 ‘생명’이다.

4. 사람이 살아 있어도 ‘기억’을 못 하면, 죽은 상태와 같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다. 기도해서 기억나도록 간구하여
라.

5. <자기 주관권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은 ‘자기 주관권’에 있으니, 계속 찾으면 찾게 된다.

6. <사람>도, <물건>도 ‘생각나는 것들’을 찾아라.

7. <성령>은 감동을 주시어 ‘사람’도, ‘물건’도 순간 생각나게 해 주신다. 그때 즉시 찾아야 된다.

8. 누구든지 <기억>이 ‘생명’이다. <기억>에서 잊지 않게 매일 ‘자기가 할 일들’을 기록하고 눈으로 보아라.

9. <기억>에서 잊어서 ‘성공할 것’도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

10. <최첨단의 성공 비법>은 ‘뇌에 기억하기’다.

11. <할 일>을 ‘기억’에서 잊으면, 전혀 모른다.

12. <기억할 것>을 잊으면, 그쪽으로는 식물인간과 같다.

13. <자기 할 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늘 보고 행하는 자는 ‘천재적인 뇌’가 된다.

14. <기억>에서 잊으면, 식물인간이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는 100년이 가도록 안 잊을 것 같아도, 어느 때는 듣고 10분도 안 돼서 잊기도 한다. 잊었어도 ‘잊었는지 모르는 자’도 있고, 잊은 것을 알아도 ‘내용’을 기억 못 하는 자도 있다.

16. 설교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들은 것이 다 생각나니 거의 그대로 다 말한다. 그러다 하루, 이틀이 가면 뇌에서 잊어서 ‘핵’만 덩성덩성 생각난다. 그러다 아예 ‘핵’도 잊는다. 이같이 지난날 ‘삼위에 대한 말씀’과 ‘그 중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도 점점 ‘생각’에서 잊는다. 몇 개만 알고 있다가 결국 그것도 잊는다. 그래서 <휴거>도 실패한다. <기억>에서 잊으니, 성공할 것도 실패한다.

17.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행해 온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 많은 일들을 했어도, 지금은 수만 가지 중에 몇 가지씩만 생각한다. 다 잊어서다. 이같이 현재에 속한 시간이 지나가면 잊으니, 기록하여라. 그리고 기록해 둔 것을 보아라.

18. <꼭 해야 될 일>은 ‘그때’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 할 일>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리 중하게 들린다. 그러다 뜨거운 물이 식듯 생각이 식으면 ‘하고 싶은 생각’도, ‘필요성’도 서서히 흐려진다. 고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행하여라.

19. <자기가 꼭 해야 될 일들>은 잊지 않게 기록하고, 계속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생각이 뜨거워지고 강해져서 실천하게 된다. 이같이 해야 성공하고, 그 중한 휴거도 능히 완성시킨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는 자>는 휴거도 ‘완성급’으로 이루고 있다. 대부분 ‘휴거 300선, 400선, 500선, 600선’이 많다. 세상에서 ‘휴거 700선’을 넘어 ‘휴거 1000선’까지 이루고 가야 된다. 이는 <월명동에 처음 가는 자>가 ‘목적한 월명동에 완전히 도착한 것’과 같다. 완전히 도착했으니, 확실하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새벽에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실체 속에 사는 자들>은 행해야 실감 난다.

2. <휴거 400선에 있는 자>가 거기서 성장을 더 안 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신앙만 하면, ‘그 단계에 해당되는 황금성 천국’을 얻고 살게 된다. 그 정도의 위치는 ‘월명동 근처 진산 쪽에 집을 짓고 사는 격’이다. 황금성 천국의 ‘핵 위치’에 가야 된다. 그러니 과정에서 계속 행하여 ‘목적지 700선’까지 향해 가고, 거기서 더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3. <월명동>도 무한히 계속 개발할 수 있다. 그같이 휴거도 700선을 넘어서 계속 만들어 간다.

4. 저마다 꼭 하고 싶은 것들도 무한하다. 계속 하면, 얻는다.

5. 섭리사 각 교회의 생명 전도를 놓고 보아라. 현재 인원에서 천 명, 만 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까지 더 할 수 있다. 이같이 무한하다. <휴거>도 저마다 행하는 대로 무한히 차원 높여 간다. 자기가 행한 대로 육계에서도 얻고, 영계에서는 ‘영’이 영원히 쓰니 자기가 행한 대로 무한히 얻는다.

6. <황금성 천국> 안에서도 차원이 많다. 차원대로 건축물도 각각이다. <작은 집 하나>를 얻고 사는 자도 있고, <집>을 ‘한 민족’만큼 얻고 사는 자도 있다.

7. <영의 세계>를 따지는 방법을 말해 주마. 곧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다. 세상을 보아라. 어떤 자는 겨우 ‘방 하나’를 얻고 살고, 어떤 자는 가옥 한 채를 얻어 ‘전세살이’를 하며 살고, 어떤 자는 ‘작은 개인 집’ 하나를 가지고 살고, 어떤 자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어떤 자는 ‘정원이 있는 별장 한 채’를 가지고 살고, 어떤 자는

‘큰 정원이 있는 별장 두 채’를 가지고 살고, 어떤 자는 여기저기 ‘좋은 명승지’나 ‘아름다운 곳’마다 별장을 지어 놓고 살고, 어떤 자는 ‘한 지역’을 차지하고 살고, 어떤 자는 ‘큰 도시’를 얻고 살고, 어떤 자는 ‘한 나라’만큼 얻고 산다. 이 같이 <영의 세계>도 ‘무한한 세계’다. <휴거>가 귀한 것을 깨닫고 ‘삶의 최고 목적’으로 삼고 행해야 된다. <최고의 것>은 ‘최고의 조건’으로 얻게 된다.

8. <영의 세계>는 모두 ‘땅’에서 결정된다. <땅에서 자기 육신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한 자>는 영의 세계에서 ‘한 나라’를 차지하듯 한다. 의심스러우면 가 보아라. 그 정도 행하는 자라면 누구나 확인된다. <영의 세계>는 ‘영’이 활동해야 하니, 그만큼 활동 범위가 커야 된다. <지구>라도 ‘영’이 다니면, 순간이다. 그러니 그만큼 영의 세계는 커야 된다.

9. <섭리사>에는 천국에 집 한 채, 혹은 두 채, 혹은 세 채를 얻고 사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한 지역, 혹은 한 나라, 혹은 지구만큼 큰 집을 얻고 사는 자도 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 때 육신도 잘되고, 영도 잘되게 정신과 생각을 놀리지 말고, 시간을 놀리지 말고 계속 행해야 된다. 태만하면 안 된다.

10. <섭리사에 있다 나간 자들의 것>은 ‘조건을 세운 자’가 가지게 된다. 마치 <부도 난 집>을 다른 자가 돈 주고 사듯 한다.

11. <뇌의 생각과 기억>에서 ‘황금성 천국’이 좌우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최근 5~6년 동안 해 주신 계시 말씀만 봐도 4000편 이상 된다. 그런데 말씀을 해 줬어도, 듣기만 하고 거의 잊고 일부만 행해서 그 정도 휴거 위치에 있다. 월명동에 돌을 사 오면 다 쓰듯이, 저마다 실천할 말씀을 주었으니 잊지 말고 모두 실천해야 월명동같이 완성하게 된다. <잊었던 계시와 말씀들>을 어서 다시 읽고 행하여라.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해진다. <월명동 돌을 쌓을 때>도 ‘귀한 것’을 깨달아서 그때 그리 미쳐서 했다. 지금은 못 한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해 줄 수 없는 말씀들이다. 그때 듣고 그때 행해야 된다.

13. 잊으면, 죽는다. <행하며 살라고 해 준 말씀들>을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14. <기억>이 ‘생명’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이다.

15. <자기 방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잊고 안 찾으면, 없는 것이나 같다. 존재하고 있으니, 찾으면 있다. 그같이 <잊은 것들>도 ‘자기 뇌 속’에 있고, ‘섭리사 주관권’에 있으니, 찾으면 있다. <생명들>도 그러하다. 있으니, 찾아라.

16. 선생이 한 서류를 잊어서 방에서 1시간 동안 찾았다. 찾는 중에 잊었던 다른 7개의 서류도 찾았다. 결국 처음에 잊었던 서류도 찾고, 다른 것들도 찾게 되었다. 이같이 <생명들>도 ‘찾을 자’를 찾다 보면, 그동안 잃은 생명들도 생각나서 그 바람에 다 찾게 된다. 그리고 결국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자’도 찾게 된다. 이같이 하라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셨다. 생명들을 잃는 문제가 일어나 기도한다. 잃은 자가 많다. 잃은 생명들을 찾고 있으니, 모두 기도해 주어라. 이 <때>를 따라 잃은 생명들을 모두 찾자. 그러면서 다른 자들도 이 기간에 찾자.

17. 잊으면, 그 생명은 죽는다.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18. 각 교회마다 안 보이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삼위도 그들을 찾고 있다. 사탄이 끌어가서 죄사슬을 채워 놓았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풀어 주신다.

19. <잃은 자들>을 찾으면서, ‘다른 자들’도 찾으면 된다. 진실로 행하면서 기도하고 찾아라. 그런 자는 차원이 확 올라간다. 그가 얻는 ‘하늘의 보화’가 크다.

20. <기도 기간> 때에 ‘잃은 생명들을 찾기’다. ‘자원을 높이기’다. ‘생명 전도’다. ‘화목’이다. ‘일하기’다. ‘뭉치기’다. ‘고치기’다. ‘행하기’다.

21. 왜 잊었느냐. 알고 찾아야 생명들이 감동되어 오고, 잃은 자들을 찾는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자기>를 잘 만들기다.

2. <자기>를 만든 대로 쓰여지고, <자기>를 만든 대로 존재하게 된다.

3. <제2창조>로 완성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펴고 뜻을 이룰 메시아’도 땅에서 낳고 기르면서 만드신다. 선지자도, 사명자도 다 만드신다.

5. <월명동>도 만들어서 지금같이 됐다. <제2창조>를 하였다.

6. <월명동>도 만든 대로 쓰고 있듯이 누구나 ‘자기’를 만든 대로 쓰고 있다.

7.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현재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이 만들라고 하셨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새 시대 표상 성전’이다. 만든 대로 쓰고 있다. 가령 <월명동 자연성전>을 ‘현재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달리 ‘주택지’로 만들었으면, 월명동을 ‘일반 동네’처럼 썼을 것이다. 만든 대로 쓰여진다.

8. 힘들어도 ‘자기’를 만들어라. <자기 육>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영’을 만들어라. <육>이 행해야 만들어진다.

9. <만든 자>는 얼마나 행복하냐. 가령 쇠덩이 하나로 ‘차’를 만들든지, ‘장비’를 만들든지, ‘기계’를 만들든지, ‘농기구 연장’을 만들든지 하면, 그것을 만든 대로 쓰게 된다. 이같이 <하나님>도 저마다 자기를 만든 대로 쓰시고, <자기>도 자기를 만든 대로 쓰게 된다.

10. <집>으로 안 만들었으면, ‘집’으로는 못 쓴다. <집>으로 안 만들고, ‘과일 밭’으로 만들고 ‘농사지을 땅’으로 만들었는데 ‘집’으로 써지겠느냐. 이같이 <자기>도 만든 대로 쓰게 된다.

11. <자기 육>이 하나님과 시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자기 영’을 ‘천국에 속한 영’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그 영이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못 간다. <육>이 ‘천국에 속한 자’가 되어야 <영>도 ‘천국에 속한 영’으로 변화된다.

12. <농사를 짓는 기계>로는 ‘옷’을 만들지 못한다. <옷을 만드는 기계>로 하지 않고서는 ‘옷’을 만들지 못하듯이, <자기 육>이 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자기 영’을 ‘천국에 속한 영’으로 만들지 못한다. 고로 그 영이 천국으로 휴거가 안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 도우시며 함께 행해 주시니 ‘자기 육’도 ‘영’도 만들어라. <자기 육>과 <영>을 ‘천국에 속한 자’로 만들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1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자기 육’도 ‘영’도 만들어진다.

14. <자기를 만드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오랜 기간이 걸린다. 힘들어도, ‘자기를 만드는 일’에 투자하여라.

15. <자기>를 온전히 만들면, 그로 인해 다른 자들도 온전히 만들게 된다.

16. 잘 만들면, ‘결작’이다. <월명동>도 잘 만드니, ‘결작’이 되었다. <월명동>같이 자기를 멋지고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라.

17. <자기>를 ‘영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영적>으로 안 만들면, 영적으로 쓸 수가 없다.

18. 만들고 행하면, 얻는다.

19. <월명동>도 중장비를 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웅장하게 못 만들었다.

20. <만들어진 자>를 통해 만든다.

21. <하나님>은 ‘구원자’를 만들어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어 그 육신을 쓰고 구원역사를 펴시고,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을 이루신다. <잠수함>이나 바닷속 깊이 들어가지, ‘일반 배’는 못 들어간다. 오직 <메시아>만이 ‘머리’가 되어 ‘이 시대 하나님의 뜻’도, ‘사랑 휴거’도 이룬다.<말씀>을 안 주면, ‘휴거의 영’으로 형성이 안 된다. 고로 하나님은 ‘이 시대 보낸 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뜻’도, ‘휴거’도 이루신다.

22. <증거자>도 ‘증거’를 안 하면, 그대로 있다. 전체가 모두 증거하여야라.

23. <자기 사명>대로 안 하면, ‘영’이 안 크다. 사명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한 자들의 영을 보면, 어련이 안 돼서 키도 작고, 소견도 좁고, 생각도 작다. <자기 영>과 <영계의 자기 집>을 보아라.

24. <월명동>도 어떤가 보아라. 잘 지어졌느냐. <월명동>은 자연성전이니, 모두 자연스럽게 지어졌으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궁, 시대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완성하니, 그같이 만든 대로 쓴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들>도 만든 대로 쓰고 살고 있다.

25. <승용차>로 만들었는데, 승용차를 ‘샵’이나 ‘농사짓는 기구’로는 못 쓴다. 만든 대로 쓴다.

26. <전도하는 자>도 <가르치는 자>도 각종으로 만들되, 잘 만들어야 된다. <제대로 못 만든 자>는 봐도 실적도 없고, 보통이다.

27. <집>만 봐도 ‘잘 만든 집’을 보면, “엄청나다. 멋있다. 좋다.” 한다. 보통으로 지어 놓으면, 거기서 살맛도 안 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지도 않는다. <자기>도 그러하다.

28. 과거 10년, 20년 동안 자기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기간으로만 봐도 모두 ‘휴거 700선, 휴거 1000선’에 갇어야 된다. 제대로 안 만들어서 ‘휴거 300선, 400선, 500선’에 서 있다. 이 정도면 ‘보통 아파트’ 정도다. <휴거 700선>은 ‘별장’이고, <휴거 1000선>은 ‘궁’이다.

29. <휴거 700선 이하>는 ‘동메달’이고, <휴거 700선 이상>은 ‘은메달’이고, <휴거 1000선>을 넘으면 ‘금메달’이다.

30. <보통으로 만든 자>는 ‘덜 만들어진 자’다. 고로 ‘은메달’이나 ‘동메달’정도다. <휴거 1000선>까지 목표를 아예 높게 두고 자기를 더 좋게 온전히 만들어라.

<2018년 1월 1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작품>도 ‘더 좋은 것’은 완전히 다르다.

2. <영의 세계>도 ‘낙원’과 ‘천국’과 ‘황금성 천국’은 완전히 다르다.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는 ‘더 좋은 나무’로 집을 짓기도 하고, ‘좀 약한 나무’로 짓기도 한다. 그런데 다 지어 놓으면, ‘더 좋은 나무로 지은 집’이나 ‘좀 약한 나무로 지은 집’이나 비슷하다. 좋은 나무로 지은 집이 더 강해도, 그냥 보면 잘 모른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완전히 표가 나게 다르다. <낙원>과 <천국>은 아예 ‘자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천국>과 <황금성 천국>도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세계를 만든 자료’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구상’도 다르다. <황금성 천국>에서도 ‘더 좋은 데’는 아예 ‘본질’이 다르다.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는 ‘더 좋은 재료’를 써서 ‘집이 좋다.’ 혹은 ‘집이 못하다.’가 결정되지만, <영의

세계>는 이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더 좋은 곳’이 결정되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낙원>과 <천국>과 <황금성 천국>은 아예 ‘구상’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자료’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하셨다.

3. 세상에서도 ‘돈의 가치가 높은 것’을 보면, 아예 다르다.

4. <사람>도 ‘더 좋은 단계에 있는 자’는 아예 다르다. <영의 모양과 형체>가 다른 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아름답고 빛이 난다.

5. <예술품>도 ‘성자가 주고 가신 것’과 ‘일반 것’을 비교해 보니, 비슷하지도 않고 아예 ‘위치’도, ‘형체’도, ‘모양’도, ‘구조’도 100% 달랐다. 이같이 <황금성 천국>도 ‘더 높은 곳’은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아예 다르다.

6. <월명동에 있는 작품들>도 비슷한 것 같아도, ‘개성’으로 보면 완전히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

7. <섭리사>에서도 ‘새로운 자’가 오면, 그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다른 자가 온다.

8. <월명동 나무>가 죽으면, 아예 ‘더 좋은 것’으로 구해다 심는다. “그게 그거네.”가 아니다.

9. <시대 인물>도 아예 다르다.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은 아예 다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0. <한 주인>이 만든 것이라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 다르다.

11. <한 차원> 높은 것이 이리 다르다. <한 차원>을 더 높게 하여라. 그러면, ‘밑의 차원의 것’과 비교가 안 된다.

12. 하나님은 <교회>도 ‘한 차원 더 높은 것, 최고의 것’으로 주셨다.

13. <시계>나 <반지>도 만들면, ‘만든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일생을 간다. 고로 만들 때 아예 잘 만들어라.

14. <자기 수준과 차원>을 높여야 ‘차원 높은 것, 좋은 것’을 본다.

15. 어떤 것은 형상과 모양을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도, ‘자기 뇌의 수준과 차원’이 낮으니 좋게 보고 비싼 값에 산다. <세상>에서는 ‘명예’나 ‘권세’를 위해 비싼 값을 주고 어떤 것을 사거나 ‘유행’에 따라 비싸게 사기도 한다. 표준이 없고, 불합리하다. 어떤 시계는 모양이 특별하지도 않은데 값만 수억이다. 상술이다. 제대로 보면, 세상에서는 특별하게 취급받지 못해도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것이 있다.

16. <사람>도 특별하지도 않은데 TV 화면에 나오면, “으앗!” 하고 우러러본다. 그들과 비교도 안 되게 멋진 자들이 섭리사에 많다. TV에 나와서 특별한가 알아보면, 섭리사에서는 보통 정도 된다.

17. <보통 것>도 백화점에 진열해 놓으면, 아주 특별하게 보이고 비싸게 보인다. 제대로 보면, 보통 것이 많다. 다 ‘장사꾼 상술’이다.

18.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자들’을 보고 엄청나다고 한다. 모두 하나의 상술과 같다. 이들을 섭리사에 데려다 놓으면, 보통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하다.

19. <선생>도 몰랐을 때는 ‘동네 이웃 사람들’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며 우러러보았다. 알고 보니, 나와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자들이었다. 이를 깨닫고, ‘나를 만드는 일’에 투자하며 나를 만들었다. <큰 자>는 ‘지구’가 한눈에 안 보이듯 안 보이고, <작은 자>는 ‘집’이나 ‘나무’가 한눈에 보이듯 잘 보인다.

20. 처음에는 중말거리, 석막리, 삼가리, 부암리를 보며 부러워했고, 진산, 대전, 서울을 보며 부러워했다. 알고 보니,

<월명동>은 다른 지역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일 좋은 곳>이었다. <월명동>은 한 지역에만 전설이 수십 가지가 흐르고, 좋다는 형상이 그리 많다. <하나님이 구상하여 만든 곳>이니 아예 다르다. 그곳에서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났다. 지구 세상에 이런 곳은 오직 ‘한 곳’뿐이다. 아예 그릇도 다르고, 그릇에 담긴 것도 다르고, 그릇에 담긴 자도 다르다.

21. <자기>도 크다는 것을 알고,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라.

22. <가수들>을 전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려고 했는데,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안 되었다. <섭리사 노래>는 ‘휴거된 자들’이 불러야 되니, 얼마나 어렵고 그 차원이 높겠느냐. <깨끗한 신부>여야 한다. 곧 <섭리사 신부들>이다. 아니면, 자격이 없다. 하나님은 ‘만든 것’을 보고 쓰신다. <성령같이 깨끗이 만든 자>여야 되고, <삼위의 신부로 만든 자>여야 된다. 그래야 삼위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다른 자들은 영광이 안 된다. <뇌>가 세상 노래로 썩었으니, 그런 것으로는 영광이 안 된다.

23. 전능자 앞에 제대로 만들고 써야 된다.

24. <하나님이 만든 자>여야 된다. <주가 만든 자>여야 된다. <육>도 <영>도 다 보고 마음에 들어야 된다.

25. <황금성 천국>도 ‘만든 자’만 가게 된다. <만든 자>만 들어간다.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연결된 것>은 ‘하나’만 생각하고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 손해를 입는다.

2. <연결된 것>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이상이 없으면 행해라.

3. <이것>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 이것을 행함으로 ‘이것과 연결된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것까지 보고 행해야 된다. 이런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며, 신의 생각을 받고 행하는 자다.

4. <미련한 자>는 ‘한 가지’만 보고, 그 한 가지가 좋으니 행한다.

5. <지혜로운 자>는 ‘실천할 것’과 ‘그것과 연결된 것’까지 보고,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없으면 행한다.

6. 가령 돌을 쌓을 때 눅혀 놓으면 앉기 좋으니, 그 ‘한 가지’만 보고 눅혀서 쌓기만 하면 다른 돌들을 쌓을 자리가 부족하게 된다. 고로 돌 조경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항상 ‘연결된 것’까지 보고 행해야 된다.

7. <연결된 것>이 아닐 때는 ‘한 가지’만 보고, 그 한 가지가 완전하면 행하면 된다.

8. <자기>만 생각하고 하면 ‘타인’에게는 해가 되니,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긴다.

9. 항상 ‘자기’와 ‘이웃’을 생각하고 말하기다. 행하기다.

10. <한 가지>만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행하면,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긴다. 절대 계산하고 따져 보고, 이상이 없으면 해야 된다.

11.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그로 인해 다른 문제가 오고 화가 생긴다.

12. 어떤 자는 ‘좋은 돌’만 생각하고 급하게 돌을 잡아당겨 빼다가 뒤에 있던 돌이 굴러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같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좋아하지 말고, ‘그것과 연결된 것’까지 항상 보고 행하여라.

13. <돌 조경을 쌓을 때>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다른 한 가지’가 이뤄지지 않으니, 그 조경은 ‘작품’이 안 된다.

14. 여자나 남자나 ‘자기’만 생각하고 행하면, ‘그 대상’에게 해가 되고 문제가 생긴다.

15. <술>이나 <담배>도 맛있고 좋다고 하며 그것만 생각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그로 인해 위암과 폐암이 생겨서 각종 지옥 고생을 당하며 살고, 병들어 죽기도 한다. 이같이 몰라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는 자는 화를 받는다.

16. <행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알아보고, 자로 재 보고, 계산하고 완전하게 행하여라.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고 행하신다.

18. <자기>는 좋아서 상대를 사랑하더라도,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는 싫으니 문제가 일어나고 법에 매이기도 한다.

19. 송충이가 징그럽고, 소나무의 잎을 다 뜯어 먹는다고 살충제를 뿌려서 다 멸했다. 그런데 살충제가 독하니, 소나무 잎의 일부가 죽었다. 또 소나무에 와서 늘 노래해 주는 예쁜 새들이 먹을 송충이가 없으니, 새들이 다 탄 데로 날아갔다. 고로 예쁜 새소리가 없어져 버렸다. 좋아서 했어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니, ‘다른 두 가지’에 문제가 생겨 손해가 갔다. <모든 것을 문제없이 하는 자>가 ‘첨단의 지혜로 행하는 자’이며, ‘인간으로서 신의 경지에서 행하는 자’다.

20. <야심작을 쌓을 때>도 돌을 자연스럽게 보라고 뽀족한 돌들만 쌓으니, 사람들이 그 좋은 절경에 올라가 편히 쉴 수 있는 신선 자리가 없었다. 고로 하나님과 성자께 다시 물어보니, “두 가지를 보고 쌓아라.” 하셨다. 고로 야심작 앞쪽은 ‘앉는 자리’로 만들고, 뒤쪽은 뽀족한 돌들을 쌓아 ‘절경과 비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절경과 비경에도 신선 자리를 만들어 쌓았다. 결국 하나님의 구상대로 ‘백보좌 상징’ 야심작을 쌓으니, 하나님은 “됐다.” 하고 끝내셨다.

21. 한번은 좋은 돌을 놓을 자리를 골라 두고, ‘어떻게 놔야 모두 보고 좋아할까?’ 하며 이리 놓고 보고, 저리 놓고 보았다. 이리 놓고 보면 이리 볼 때는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저리 보면 별로였다. 고로 성자께 물으니, “운동장에서 보고 멋있는 각도로 세우자.” 하셨다. 가까이서 볼 때는 멋이 없었는데, 20m 떨어진 운동장에서 보니 아주 멋있고, 사람의 옆모습 같은 형상이 보였다. 이같이 모든 돌들을 하나님과 성자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쌓았다. 고로 ‘한 가지’만 보고 쌓지 않고, ‘두 가지, 세 가지’를 보고 ‘전체’를 보고 쌓았다. 그러니 앞산 조경도 되고, 관중석도 되고, 스탠드도 되고, 전체가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되었다.

22. <소나무>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심으면, 수천만 원짜리 작품이 ‘돌’에 가려지게 된다. 고로 나무를 돌로 안 가리는 위치에 심고, 혹은 가려도 ‘작품 숲’을 돌이 보호해 주는 위치에 심었다.

23. 사람이든 집이든 가려지면 못 보니, 가치가 없어지고 답답하다.

24.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하면, 여러 가지로 가치 있게 비싸게 쓰게 된다.

25. <삼위가 창조하신 성자바위>를 보아라. <일곱 가지>를 생각하고 만드셨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만드셨으면, ‘한 가지 형상의 가치’만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생각하고 행하여라.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모든 것>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면, 사탄이 오지를 못한다.

2.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하여 ‘영’이 변화되면, ‘절대신이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3. <육적>으로만 완전하게 행한 것은 가다 ‘환난’이 오면 변하고, 그로 인해 넘어진다.
4. <영적>으로 완전하게 ‘육’도 ‘혼’도 ‘영’도 행하여 만든 것은 안 변한다. 고로 환난이 와도 안 넘어진다.
5. <섭리사에 있다 나간 자들>은 삼위와 주를 시인하고 믿고 살았어도 ‘육적’으로만 완전하게 했다. <영적>으로 완전하게 해야 ‘영’도 ‘혼’도 완전하게 변화되고 형성된다.
6. <영적>으로 완전해야 된다.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리함으로 완전하게 행하여 ‘영’이 완전하게 형성돼야 한다.
7. 성경에 “네 육도 혼도 영도 흠 없이 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라.” 했다.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기도.
8. <집을 지을 때>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짓는다. 그래야 물이 안 새고 배수가 제대로 된다. 완전하지 않으면, 창이 안 닫혀서 찬바람이 들어오고 비도 새고 물도 샌다. 금방 표가 난다.
9. 많은 것을 완전하게 하기는 힘들어도 ‘자기 하나’는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생활>에서 해야 된다. 하나하나 행하면서 완전하게 해 버릇하는 것이다.
10. 완전하게 안 해서, 실패한다.완전하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11. <1에서 100까지 한 자도 안 빼고 쓰는 것>이 ‘완전’이다. <정한 곳>까지 갔으면, ‘완전히 간 것’이다. 가령 글씨 100자를 쓰는데 누가 봐도 ‘정자’로 썼으면, ‘완전히 쓴 것’이다. 이것이 ‘완전’이다.
12. <생각>하고 ‘행하는 것’뿐 아니라, 얻어야 ‘완전’이다. 하나하나 이같이 하기도.
13. 매일 자기 죄와 불의, 모순, 할 일을 안 한 것을 두고 ‘회개하기’다. <회개>했으면, 생활에서 ‘완전하게 행하기’다.
14. <완벽주의자>같이 청소하기, 먹기,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기, 옷 빨기, 설거지하기 등 ‘많은 일들’을 잘하는데, ‘신앙적’으로는 잘 못 한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할 것이 많으면, 온전히 하기가 힘들다. 고로 자기 손해다. <공적 일>을 자꾸 나눠 주어라. ‘몇 가지’를 해도 온전히 하여라.
15. 혼자 여러 가지를 하면, 온전하게 못 하게 된다.
16. <황금성 천국>은 높이 갈수록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
17.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든 곳>은 ‘1000선 황금성 천국’이다. 이곳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흠 없이 행해야 간다.
18. <순금 신앙>, <순 다이아몬드 신앙>이다. <가짜 다이아몬드 신앙>은 아예 안 된다.

<2018년 1월 1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통인 것도 좋게 보인다.
2. <존재물>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그것보다 먼저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따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3.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통’이거나 ‘싫어하는 것’도, 어떤 자는 극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4. 사람이 몰라서도 자기 인식대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5. 몰라서 자기 인식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실상’을 알고 싫어하기도 한다.
6. 제대로 알았다면, 사랑하거나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7. <선택>은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하고, ‘취향’대로 하고, ‘체질’대로 한다.
8. <자신이 좋아 기뻐하며 흥분에 처했을 때>는 존재물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흥분한 대로 결정한다. 고로 후에 보면,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음을 확인하게 된다.
9. 처음에는 서로 좋아 사랑해서 살게 됐는데, 살다 보니 성격이 안 맞고 기대에 어긋나서 만족을 못 한다. 고로 그제야 선택을 잘못했음을 알고 싫어하기도 한다. 이는 서로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 차원의 생각에서 선택했기 때문이다.
10.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지도 않고 보통으로 보는 사람도 자기는 좋아서 기뻐하며 살아간다. 이는 서로 마음이 맞아서다.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니, 사랑이 연속되기 때문이다.
11. 자기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로 ‘아름다움’이 보인다.
12. <처음에 볼 때는 아름답지 않고 예쁘지 않았던 자>도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면 ‘자기 뇌신경’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아름답게 보인다. <사람>도, <존재물>도 그러하다.
13.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변화된다.
14. <처음에는 체질이 안 돼서 좋아하지 않던 음식>도 체질이 되면 입맛에 맞으니 좋아하고 사랑하며 기뻐한다.
15. 자기 취향, 자기 입맛, 자기 체질대로다. <사람>도, <존재물>도 그러하다.
16. <환경>도 처음 모습 그대로만 봤을 때는 좋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개발하고 만들어서 정말 좋고 아름답게 변화되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실체를 보고 평가하게 한다.
17. <월명동>도 처음 그 환경은 그곳에 사는 사람도 안 좋아했고, 거기를 보러 온 사람들도 안 좋아했다. 그러니 한 사람을 선택하듯 월명동을 선택했을 때 ‘왜 그 많은 곳을 두고 이곳을 선택했지?’ 하며 이해들을 못 했다.<월명동>은 첫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선택하셨고, 둘째, 시대 사명자가 삼위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였고, 셋째, 마치 신부가 신랑을 따라 결정하듯 섭리사 따르는 자들이 삼위와 주를 따라 결정한 곳이다. <월명동>을 선택하고 계속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구상대로 개발하여 ‘제2창조’를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처음의 환경과 전혀 다르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환경, 천하 비경>이 되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숨긴 것들을 드러내시니 세계 어디에도 없는 ‘형상과 모양을 갖춘 사연의 장소’가 되었다. 이같이 <사람>도, <존재물>도 ‘옛것’을 버리고 더 좋게 만들면 ‘이상세계’가 되어 살게 된다.
18. <월명동 소나무들>도 처음에 봤을 때는 “멋있다. 크다. 예쁘다.” 하는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랑해 주면서 10년, 20년, 30년의 세월 동안 퇴비하고 가꾸며 키웠다. 그러니 지금은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에 들어가면 ‘멋있고 아름답고 큰 소나무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 돌 틈이나 산에서 자란 수천 주의 소나무들이 환상적이다.
19. 처음에 월명동은 주변이 ‘산’으로 꽉 막혀 있고, 감람산은 평지도 없는 급경사 길이고, 석막리에서 올라오려면 ‘소로 길’로 올라와야 되고, 진산에서 앞섭골로 오려면 산이 높아서 쳐다보고 한숨 쉬는 곳이었다. 그러니 사람들도 ‘넓은 진산, 금산, 대전’을 두고 왜 여기에 사느냐고 했다. 진산에서 성황당으로 짐을 지고 올라오면 1시간, 2시간이 걸리고 다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다. 빈 몸이라도 급경사 길이라 힘들었다. 차도 안 다니고, 리어카가 지나다닐 길도 없었다.

손바닥같이 좁은 길에 돌들이 놓여 있어서 그 돌들을 넘어 다녔다. 그러니 “앞섭골 산이 원수다.” 했다. 장마철에는 더 힘들었다. 성황당 밑의 도랑 돌길은 험난한 길이었다. 3km 정도 되는 길인데 맨몸으로 다니기도 힘들었다. 돌을 피해 요리조리 발을 옮기다가 잠시 한눈을 팔면 즉시 발을 헛디뎈 넘어지곤 했다. 마치 ‘돌 덜창’ 같았다. 이런 곳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쓰이니 ‘등산길’이 되고, ‘아름다운 환경’이 되고, ‘높이 450m 이상 솟은 산은 귀한 명소’가 되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어 아름답고 쓰기 좋게 되었다. 고로 모두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게 되었다. 만일 평지였으면, 보통 집이나 짓고 농사나 짓는 환경으로 쓰였을 것이다. 지금은 평지에 사는 자들이 와서 보고 “이곳이 지상천국이다. 에덴동산이다.” 말들을 하며 부러워한다.

20. <월명동>은 이리저리 솟은 산에 나무가 무성하니 ‘자연림(自然林)’이 되었고, <산에 난 길>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귀한 등산길, 산책로’가 되었다. 또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기암절벽 절경>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시어 수십 년 동안 ‘제2창조’를 해 놓으니 ‘천하 비경 명소’가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성경에 약속한 뜻을 당세에 다 뻗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땅에서 사랑하는 자들과 1000년 동안 ‘휴거 혼인 잔치’를 하신다.

2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최고’다.

22. <사람>이든, <환경>이든, <존재물>이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고’다.

23. <자기>가 택한 것은 좋았어도, 가다 보면 싫어지고 팔아 버리기도 한다.

24. 항상 삼위를 사랑하고, 삼위와 일체 되어 택하면 ‘월명동’같이 처음에는 싫어했어도 갈수록 좋아하게 되고, 평생 사랑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25. 항상 삼위를 최고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삼위와 일체 되어 택해야 된다. <환경>도, <존재물>도 삼위가 택하실 때 ‘진짜 귀하고 귀한 보물’이 된다. 고로 그로 인해 평생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26. <삶의 선택>을 할 때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가 보낸 주로 말미암아 선택하여라. 그러면 삼위의 생각을 주시어, 후회 없이 형통하게 하신다.

27.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는 메시아>도 삼위가 택하시고, <그가 태어날 장소>도 삼위가 택하시어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갖 것을 겪게 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삼위 자신의 말씀과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어 ‘새 역사의 뜻, 최고 창조 목적’을 마지막에 ‘휴거’로 이루신다.

28. 하나님이 자기에게나 세상에 행하심을 아는 것이 그리 크다. 이것을 아는 자가 ‘큰 자’다.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환난이 닥친 자>는 갖은 고통을 겪지만, <쳐다보는 자>에게는 구경거리다.

2. <홍수나 태풍이 닥친 자>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겪지만, <쳐다보는 자>에게는 구경거리다. <겪는 자>만 안다.

3. 지옥에 가 보면, ‘겪는 자’는 지옥 고통에 이를 갈며 악을 쓴다. <쳐다보는 자>는 자기와 상관없으니, 구경한다.

4. <짐승>을 사냥하면, 잡혀서 소리를 지르며 애원한다. <쳐다보는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하나?’ 하며 그 광경을 구경한다.

5. <겪는 자>만 이를 갈고 진저리 치며 고통을 겪는다.

6. <겪는 자>와 <쳐다보는 자>의 생각과 마음은 ‘땅’과 ‘하늘’ 같은 차이다.
7. <형제들>이 고통을 받으면, 즉시 뛰어들어 도와주고 구원해 주어라.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된 생각과 마음과 몸을 가진 자다.
8. <형제>가 넘어진 것을 보았든지 느꼈으면, 즉시 가서 도와주어라. 왜 넘어졌는지 ‘내용’은 따지지 말아라.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든지, 실수로 넘어졌든지, 누가 밀어서 넘어졌든지, 술에 취해 넘어졌든지, 찢값으로 넘어졌든지 따지지 말고 도와주는 ‘네 할 일’만 해라. <구경꾼>이 되면, 네 환난의 날에 ‘금흠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9.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기도해 주고, 관리해 주어라.
10. <곁길을 가고 있는 자>가 있으면, 평소에 조금씩 이야기해 주며 이끌어 주어라.
11. 넘어졌는데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면, 불행한 자가 된다.
12. <겹줄>이 되어 서로 돕고 살아라.
13. 지구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들이다. 고로 늘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전능자에게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하여라.
14. 환난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간구하여라. <환난을 당한 자>는 당황해서 정신이 혼돈되고, 헛갈린다.
15. <공포와 두려움에 불안해하고,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자들>을 조금만 도와줘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 의지대가 되어 주고, 힘이 되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소개해 주고, 말해 주고, 그들의 마음을 삼위와 주께 묶어 주어라.
16. 사람은 몰라서 못 하고, 몰라서 제대로 못 산다.
17. <환난의 날>이 오면, ‘실오라기’라도 잡으려고 몸부림친다. 네가 그들에게 가서 힘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밧줄’이 되어 삼위도 주도 너를 통해 돕는다.
18. <인간의 마음>은 약해서, ‘실바람’만 불어도 흔들린다. 태풍이 불면 ‘동(東)’으로, ‘서(西)’로 왔다 갔다 흔들린다.
19. <생각>을 확 잡아 주어라.
20. <전능하신 하나님>도 ‘표적’을 행하실 때는 ‘미리’부터 행하게 하시어 때를 맞추신다. 가령 오전에 차가 떠나서 오후 3시에 도착한다 하자. 이 차가 못 오게 하려면 오후 3시에 막아도 안 되고, 오후 2시에 막아도 안 된다. 오전에 차가 떠나기 전에 ‘미리’ 그때부터 차가 못 오게 막아야 된다. 이같이 ‘미리’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
21. <자기와 섭리사를 해하는 자들>과 <적들>을 두고 ‘미리’부터 기도하여라. 이들은 미리 새벽부터 떠나서 온다.
22. 방주 안에서부터 막아야 된다. 방주 밖에서 막으면, 힘이 없다.
23. <모든 일>은 ‘내부’에서 결정된다. <내부>에서부터 막아야 된다. 외부에서 막으니, 이미 늦어서 안 된 것이다.
24. 따르는 자들 모두 ‘지도자’와 같은 운명이고, ‘이 시대 구원자’와 같은 운명이다. “남 일이다.” 생각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모두 한 지체다. 다리가 묶이면, 다 묶인다. 어미 닭이 묶이니, 병아리들도 다 그 주관권에 묶이게 된다. <과

거 역사>를 봐도 그러하다. <민족>이 난국을 겪으면, ‘개인’까지 모두 ‘난’을 겪었다.

25. 한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와 형제 같은 운명이 된다. 회사가 잘되면 자기도 흥하고, 안되면 자기도 망한다. <섭리사>도 이와 같다.

26. <자기>도 같은 운명이니, 자기를 위해 행하여라.

27. <민족>도, <세계>도 ‘한 명’만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민족과 세계의 운명’이 좌우된다. <섭리사> 모두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가 받을 화를 면하게 하신다. <기도>가 그만큼 큰 것이다. 이를 깨닫고 기도하여라.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생각>이 잘못되면, 헛사는 것이다.

2. <생각>이 잘못된 데서 아무리 기뻐하며 행해도, 결국은 잘못되어 있지 않겠느냐.

3.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4. <짝>이 되려면, 어떤 두 존재가 있어야 되겠느냐. <모양과 형상이 같은 존재>가 있어야 ‘짝’이 되겠느냐, 아니면 <모양과 형상이 다른 존재>가 있어야 ‘짝’이 되겠느냐. 여기서 <짝>을 잘못 생각하면, ‘실패자’가 된다.

5. 어떤 사람은 ‘젓가락’같이 두 존재가 모양과 형상이 똑같아야 ‘짝’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같이 모양과 형상이 달라야 ‘짝’이라고 한다.

6. <모양과 형상과 개성>이 달라도, ‘생각’이 같아야 짝이 된다.

7. 어떤 것은 ‘모양과 형상’이 같아야 짝이 되기도 한다.

8. 어떤 것은 ‘대칭’을 이뤄야 짝이 되는 것도 있다.

9. <남자와 여자>도 성격이 다른데 서로 ‘짝’으로 잘 맞는 자가 있고, 안 맞는 자도 있다.

10. 하나님은 ‘남녀의 짝’을 두 가지로 정하셨다. <모양과 형상>을 보고 ‘짝’으로 정하시고, <성격>을 보고 ‘짝’으로 정하셨다. <성격>이 서로 같아서 ‘짝’이 되게도 하시고, <성격>이 서로 달라서 ‘짝’으로 맺어 주기도 하신다.

11. <조화를 이룬 짝>이란, 첫째 ‘모양과 형상이 다른 존재물’이 짝을 이룬 것이다. <사람>도 그러하다. 둘째, <사람의 생각과 성격>을 보시고 그때마다 <생각과 성격이 다른 자>와 ‘짝’이 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는 <생각과 성격이 같은 자>와 ‘짝’이 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신다.

12.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서로 ‘짝’이 되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기암절벽 산을 보면, ‘두 존재물’이 보인다. <나무>와 <바위>다. <나무>와 <바위>는 모양과 형상이 아주 다른데 ‘짝’이 되어 조화를 이룬다.

13. <계곡>이나 <강>을 봐도 ‘두 존재물’이 눈에 띄게 보인다. <물>과 <나무>다. 서로 모양도 형상도 전혀 다른데, ‘짝’으로 존재한다.

14. <전혀 다른 모양과 형상>이 ‘짝’을 이뤄야 ‘다른 존재물’이 하나 더 보여서 훨씬 보암직하고 아름답다.

15. <월명동 폭포수>도 같은 것을 안 만들었다. 하나님은 개성대로 ‘다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서 ‘짝’이 되게 하셨

다.

16. <호수 옆 폭포수>는 하나님 구상대로 넓고 웅장하게 만들었다. 건너편 <연회장 골짜기>는 생긴 지형대로 돌들을 쌓고 만들었다. 이곳은 고양이같이 여자가 무릎 꿇고 엎드린 형상이다. 하나님은 ‘연회장 1자 폭포’를 만들기 3년 전에 지형을 따라 그같이 만들도록 구상하셨다. 이같이 지형과 개성에 따라 ‘모양과 형상’도 아예 다르게 만들었다.

17. <월명동 지형>을 보면, ‘여섯 개의 남녀 형상’이 보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보여 주셨다. 그중 하나가 ‘연회장’이다. 일반 사람은 못 본다. 하나님께서 ‘지형’에 대한 인봉을 떼 주시기 전에는 거기에 사는 자들도 몰랐고, 섭리인들도 수십 년간 그곳을 보았어도 몰랐다.<때>가 되어 간구하고 찾으니, ‘지형에 대한 인봉’이 떨어졌다. 때는 <성자바위>에 대한 인봉을 떼면서부터다. <성자바위>도 얼굴 형상만 ‘여섯 개’가 보인다. 말 안 하면, 모른다.

18. <메시아에 대한 인봉>도 ‘주인’이 말 안 하면, 모른다. 고로 타 종교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19. 성령님께서는 ‘연회장 폭포수 지형’을 두고 ‘사람 형체’를 보이시며 “<연회장 골짜기 지형>이 이와 같지 않느냐. 골짜기가 생긴 형상대로 만든다.” 하고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들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만든다. 고로 하나님께 맡긴다.” 하셨다.

20. 처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 보게 하시고, 후에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신다. 연회장 폭포는 호수 폭포, 하나님 상징 폭포에 맞춰서 짝이 되게 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구상대로 ‘1자 폭포’로 만들어 거기에 맞춰 노래도 주셨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이 연회장 지형에 대한 계시를 받고 안 것은 3년 전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미 천국에 구상해 놓고 계셨다. 고로 그 구상대로 하나님 상징 폭포와 짝을 이룬 폭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곳은 ‘땅의 신부들을 상징하는 폭포, 사랑 폭포, 성령 폭포’다.” 말씀하셨다. 폭포의 겉도, 속도, 모양도, 형상도 그리 만드셨다.

22. <월명동>에는 ‘남자 형상 한 군데’가 있고, ‘여자 형상 다섯 군데’가 있다. 모두 여섯 군데다.

23. 월명동의 돌들 중에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을 상징하는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가 있다. 짝을 지어 두 소나무와 함께 있다. 자연성전 야심작을 중심으로 ‘끝’과 ‘끝’에 한 짝이 있다.이것과 대상이 되는 한 짝이 또 있다. <알파바위>인 ‘유방바위’와 <오메가바위>인 ‘보지마바위’다. <유방바위> 옆 ‘성자 만난 소나무’가 알파 솔이고, 거기서 자화상바위를 지나 월명동으로 뻗어 와서 고래바위를 지나면 <보지마바위>가 있다. <보지마바위> 옆에 있는 소나무가 오메가 솔이다.

24. 각 지역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짝’이 있다. 이는 ‘앞산’과 ‘뒷산’이 있듯이, <알파바위>와 <오메가바위>도 ‘앞’과 ‘뒤’에 존재한다.

25. 자기와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다고 자기와 상관없다 하지 말아라.

26. <두 증인의 사명>도 하나는 ‘내적 증인’, 하나는 ‘외적 증인’이다. 두 존재가 있어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하나를 이루듯 하나를 이룬다. 이같이 <섭리 전체>도 ‘두 존재’로 사명을 받아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하나 되어 나가야 된다.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첫 시간>에 안 지쳐야 <둘째 시간>에 안 지친다.

2. <오늘> 지치게 하니, <내일>을 맞아도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다.

3. <일>이 많으면 지친다. 가령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가는데 평소보다 짐을 더 지면, 무거우니 지쳐서 몸부림을 친다.

그러다 하루해를 넘긴다. 다음 날이 돼도, 어제 지치게 일을 해서 피곤하니 일하기가 싫고, 또 ‘지친 시간’으로 보내니 그날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 그러다 그다음 날이 되면, 전날 지쳐서 못 한 일까지 모두 해야 되니 ‘이틀 치의 일’을 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러면 또 지쳐서 일을 하다 하루해가 넘어간다. 이같이 하는 자는 일을 오래 못 하고, 해도 ‘일’을 무섭게 보고 ‘하나의 노동’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병이 나기도 한다.

4. <일>을 줄이려면, 그중에 ‘작은 일들’을 틈틈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의 무게를 줄여야 된다.

5. <시간의 틈>이 있으면, 그때 ‘작은 일’을 해서 없애야 된다.

6. <작은 일>이 ‘큰일’을 할 때까지 따라다니면, 큰 짐을 질 때 작은 짐까지 더 얹히는 것과 같아서 무게의 적량을 넘 기니 지치게 된다. 고로 <작은 일>은 ‘작은 틈 시간’에 싹 해서 없애야 된다. 그러면 <큰 시간>에 ‘큰일’을 하게 되니, 안 지친다.

7. <일>을 하다 보면, ‘손’에서 벗어나고 ‘양어깨’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무거워서 지친다. 이때는 조금만 덜어도 가볍 다.

8. <일의 무게>는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다는 것과 같아서 저울에 ‘작은 것’만 올려도 무게를 엄청 받듯이 ‘작은 일’로 인해 ‘일의 무게’가 무거워진다.

9. <사명자들>도 일을 몰아서 하면 지친다. <틈 시간>을 쪼개서 그때 작은 일들을 자꾸 해서 없애야 한다. <부서나 단 체, 기관을 만나야 할 시간>에 ‘개인’을 만나서 시간을 쓰면, 나중에 ‘큰 시간’이 들어가야 할 때는 시간이 없으니 ‘작 은 시간’만 쓰고 대충 끝낸다. 그러니 모두 불만이다. 실패다. <작은 일>에는 ‘작은 시간’을 투자하고, <큰일>에는 ‘큰 시간’을 투자하여야. 그러면 하루 일이 가벼우니, 거뜰히 지고 간다. 고로 다음 날도 지치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 이는 ‘일하는 기술’이며 ‘일하는 지혜의 비법’이다.

10. <밀린 일>이나 <작게 남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음 날 할 일’과 함께 지고 가야 하니, 일들이 어깨를 짓눌러서 지치게 한다. 절대 그 날 할 일은 그 날 해야 된다. <작은 일>은 ‘틈 시간’에 순간순간 해 버려야 된다.

11. <작은 틈 시간>에는 ‘큰일’을 못 한다.

12. <큰 시간>으로 ‘작은 일’을 하면, 힘이 안 든다. 그러니 작은 일은 잘한다. 그러나 <큰 시간>을 ‘작은 일’에만 쓰 니, ‘큰일’을 못 하고 서산에 해가 넘어가게 된다. 고로 그날은 ‘시간 사용에 실패한 날’이 된다.

13. <전체 시간> 중에 ‘작은 것’은 재치 있게 하면 된다.

14. 절대 <큰 시간>은 ‘큰일을 하는 데’ 쓰고, <작은 시간>은 ‘작은 일을 하는 데’ 써야 된다. <큰 시간>을 ‘작은 일을 하는 데’ 쓰면, 겨우 ‘작은 일’만 하게 된다.

15. <시간 축지>다. 빨리하면, ‘축지’다. 단, 분별하고 쪼개서 하기도.

16. <큰돈>을 ‘작은 물건을 사는 데’ 쓰면, 남은 돈으로는 ‘큰 것’을 못 산다. <푼돈>으로 ‘작은 물건’을 사듯이, <작은 시간>으로 ‘작은 일’을 해야 된다.

17. <작은 일>이 밀려서 몇 개가 뭉치면, ‘큰일’을 하는 데 치명적인 암초가 되어 자기를 지치게 한다. <큰 시간>을 가 지고 ‘큰일’만 하면, 절대 안 지친다. <섭리 일>도 그러하다. <작은 일>에 ‘큰 시간’을 다 쓰니, ‘선교나 교회 운영, 부 서 운영과 같은 큰일’에 막대한 지장이 온다. <개인 삶>도 그러하니, 모두 근본적으로 체제를 고쳐라.

18. <삶의 일>에 지치면, 하루 실컷 일을 했어도 다음 날 ‘지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힘들어서 하루 쉬면, 그날 일을 못 했으니 ‘그날 것’이 밀리고, 다음 날 ‘전날 못 한 일’까지 다 해야 된다. 그러니 쉴 때 얻은 힘을 다 투자해도 힘들

고 버겁다. 겨우 했어도 할 일이 또 남는다. 매일 일을 하되, '작은 일'은 '틈 시간'에 해서 없애기다. <큰 시간>에 '큰 일'을 하면, 무게가 적당하니 간단히 하게 된다. <신앙의 공적>을 쌓을 때도 이같이 시간 투자를 하여라.

19. <섭리 일>을 할 때 '작은 일'에 '큰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후에 '큰일'을 못 한다. <작은 것>에는 '작게 투자'하여라. 큰 데다 크게 투자하여라.

20. <큰 것>을 살 때 '큰돈'을 투자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시간'이라는 돈을 가지고 큰 데다 '큰 시간'을 투자하기다.

21. <역사>도 '작은 일'로 인해서 '큰 역사'가 깨진 것이 많다.

22. 어떤 자는 '큰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작은 것'을 두 개 샀다.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어서 '작은 것'을 하나 더 사고, 3개나 샀다고 하며 좋아했다. 후에 '크고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가 보니, 물건이 너무 좋았다. 그 속에 '작은 것 3개'도 들어 있었다. 그런데 '작은 것'을 사는 데 돈을 써서 '크고 좋은 것'을 살 큰돈이 없었다. <작은 것>만 안 샀어도 '큰돈'을 가지고 샀을 것이다. 고로 <큰 것>도 얻고, 그 속에 있는 <작은 것>도 얻어서 다 해결됐을 것이다. <인생 삶>도 이와 같다. <큰일>을 하면서도 살아가고 <작은 일>을 하면서도 살아가는데, <큰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작은 일'에 투자하면, '작은 일'만 하고 '큰일'은 못 한다. 이런 자는 '골목길 인생'을 살아간다. <신앙>도 그러하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고쳐라.

23. <삼위와 주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자>는 하나님과 주 앞에 '사울 왕'같은 자다. <자기>가 '왕'이 되어 교만으로 행하니, 결국 하나님은 '다윗'으로 바꾸셨다. 종전대로 하다가도 이제 '때'가 와서 운영 법이 달라지니, 주께 물을 것은 물어라. <주께 묻는 것>이 '지혜'다.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부모>가 '어린이들'에게 시간을 뺏기면, '그날 크게 할 일'을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제자리 삶'을 살게 되고, 가정이 빈궁해진다.

2. <선생 어머니>는 선생이 기어 다닐 때, 아기를 보다 보면 '큰일, 농사일'을 못 한다고 선생을 '가는골 큰 감나무' 가지가 늘어진 데'다 긴 끈으로 허리를 매어 놓고 밭을 맸다고 하셨다. <큰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때 어머니는 밭을 매는데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아기가 잘 있나 걱정되어 호미를 들고 뛰어 내려왔다고 했다. 가 보니, 아기가 손으로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아기 앞에 큰 독사가 고개를 세우고 아기를 물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다. 아기가 독사를 때리려고 손을 들면 독사가 놀라서 고개를 돌리고, 그러다 아기 손이 내려가면 아기를 물려고 고개를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놀라서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뱀을 때려 죽였다고 했다. <영감, 직감>이 왔을 때 안 갔으면, 독사에게 물려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 후에 아기를 안고 밭을 맬 수는 없으니, 옆에 놓고 밭을 맸다고 했다. 커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뛰고 머리가 섰다. 충격을 받고, 아기 때 나를 매어 놓았던 감나무 가지를 잘랐다. 그 가지를 볼 때마다 생각나서다. 어머니도 <큰일>을 두고 '작은 일'에 매이지 않고 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셨다. 어머니가 그때 회골과 가는골의 밭을 다 맸듯이 선생도 섭리사에 잡초가 나면 다 뽑아 주고 알곡들을 키워 거둔다.

3. <작은 일>이 쉽다고 '큰 시간'을 가지고 쉽게 '작은 일'만 하면, <큰일>은 못 하게 된다. <지도자나 목회자>가 마치 '아기'만 보고 있듯 '크는 생명들 관리'만 하고 거기에 '큰 시간'을 투자하니, '전체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 <생명들>은 '틈 시간'에 챙기고, <부서나 단체, 기관> 등 큰 데다 '큰 시간'을 투자하여라.

4. <어린 생명들>은 속을 썩이기도 하니, 시간이 많이 든다. 이때는 다른 자를 세워서 전문적으로 생명 관리를 전담하게 하고, 목회자는 전체를 보고 부서들과 큰 일꾼들을 챙겨야 된다. 그래야 선교도 크게 되고, 큰 건물도 짓고, '큰일, 큰 살림'을 모두 이루게 된다.

5. <부흥이 잘되는 교회>는 목회자가 '큰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 부서와 단체들'을 살피고 관리한다. 그리고 <어린 생

명들>은 관리 전담 목사를 세워 전적으로 관리하게 한다. 모두 즉시 그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작은 교회'를 면치 못한다. 몇 명만 챙기다가 목회 기간을 다 보내고 끝낸다. 생명들을 관리하는 전담자를 세워서 하고, <큰일>에 '큰 시간'을 투자하여라. 그러면서 수시로 생명들과 관리 전담자들을 점검하여라.

6. <작은 나무>에다 '큰 나무에 줄 거름'을 주고, <큰 나무>에다 '작은 나무에 줄 거름'을 주면 서로 못 크다. <작은 나무>에 퇴비를 많이 하면, 안 크는 것이다. <큰 나무>는 크게, <작은 나무>는 작게 하여라. <작은 나무>에 퇴비를 많이 하면, 뿌리가 작아서 못 빨아들인다.

7. <큰 시간>을 '큰 데' 안 쓰고 '작은 데' 쓰는 자는 집을 짓는데 큰 나무를 큰 기둥 세우는 데 안 쓰고 잘라서 작은 데 쓰는 자와 같다. 그러다 '큰 기둥'을 세울 '큰 나무'가 없으니, 작은 것으로 세우고 만다. <교회 일꾼>도 장년부, 가정국,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등 큰 데는 큰 지도자를 세워라. 나이는 상관 말고 열심히 하는 자, 은혜로운 자, 잘하는 큰 자를 세워라.

8. 모두 보고를 제대로 하여라. 자기가 좋은 자만 세우지 말고, 전체를 보아라. <전체 무게를 감당하는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쓰러진다.

9. <위치>가 중요하다. <그 위치, 거기에 해당되는 자>다.

10. <그 위치, 그 사람에 해당되는 것>만 써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쓰면, 하나님도 주도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러다 본인까지 '하나님 역사의 줄'이 끊어지게 된다.

11. 하나님은 섭리역사 40년 동안 <큰일>은 '큰 시간'을 투자하시며 해 오셨고, <작은 일>은 '작은 틈 시간'을 가지고 해 오셨다. <시나 노래를 지을 때>나 <기타 작은 일들 할 때>는 '틈 시간'을 가지고 한다. <잠언을 쓰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하늘과 의논하는 일들>은 '큰 시간'을 가지고 한다. 어느 때는 7~8시간씩 투자한다. <편지>도 '틈 시간'을 가지고 추려서 쓴다. 개인 편지에 4~5분 정도 쓰면, 매일 70명이면 6시간이 숨 가빠 간다. 개인으로 보면 5분이지만, 뭉쳐 놓으면 '큰 시간'이 들어간다. <틈 시간>으로 성령이 코치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데>도 '큰 시간'이 들어가고, <교회 건축>과 <월명동 자연성전 건축>에도 '큰 시간'이 들어갔다.

12. <악평자들>은 '큰 시간'을 투자해서 핍박하고 악평했어도, <선생>은 기도하면서 '틈 시간'으로 대처하고 물리쳤다. <좋은 시간, 황금 시간>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 시간이 아깝다. 고로 <하나님의 일>에 '큰 시간'을 쓰고, '찌꺼기 시간'을 가지고 환난에 대처해 왔다.

13. <시대 십자가>도 온 인류를 위해 '핵 시간'을 투자해서 2009년부터 3년간 지어 줬다. 2012년부터는 섭리사 신부들을 위해 '황금 시간'을 투자해서 '영계의 말씀'을 받아 전해 주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시키고, 육도영도 모두 단장시키고 성장시켰다. 그리고 2015년 3월 16일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집중하여 행한 자들, 성장되어 준비된 자들'을 데리고 '창조 목적, 휴거'를 이뤘다. 그 후로는 '삼위와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며, 교회도 장만하고, 내실을 기하며, 선교에 황금 시간을 썼다. <나머지 틈 시간>으로는 '시대 십자가'를 져 주고 조건을 세워 가며 행했다. 그러니 엄청난 황금 시간을 투자하여 '황금 같은 말씀들'을 남기고, 1000년 혼인 잔치에 쓸 '말씀의 음식들'을 풍부히 받았다.

14. <시대 십자가>를 지는 데는 '핵 시간'을 투자해서 쓰고, <섭리사와 시대 역사>를 위해 '황금 시간'을 다 썼다. 그리 안 했으면, 섭리사에 큰일이 났을 것이다. <엄청난 시간>을 '생명 관리, 말씀, 기도'에 써서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는 데 성공했고, 선교도 해서 생명들도 잡고, 성전들도 얻게 되었다. 모두 깨달아라.

15. <주의 머리>에 맞춰 '지체들'이 알고 해야 한다. 하나님도 시간을 '황금'같이 쓰시면서 '황금 역사'를 펴 가신다. <주>도 그러하다. 이래서 그동안 늘 "황금 시간이다." 하고 외쳤다.

16. <새벽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때 시간을 잡고 행하여 말씀으로 남긴다. 그냥 기도하면, 영적으로 해결은

데도 ‘말씀 잔치’를 못 한다. 이같이 황금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얻어야 된다. 기도해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해결해야 된다.

17. 매일 <큰일>에는 ‘큰 시간’을 쓰고, <작은 일>에는 ‘작은 시간’을 쓰는 자는 ‘살림을 잘하는 지혜롭고 현숙한 신부’다.

18. 섭리사에서 보면, 자기 책임을 못 하는 자들이 조금씩 ‘주의 황금 시간’을 뺏는다. 그 시간이 모여서 결국 ‘큰 시간’을 뺏게 한다.

19. 어떤 자는 <삽으로 할 일>도 ‘포클레인’을 가지고 한다. <참새>로 될 일을 ‘독수리’를 불러 하듯 한다. 사업을 할 때도, 공적 일을 할 때도, 교회 인테리어나 수리를 할 때도 그러하니, 수집 가지로 손해가 가게 한다. 아껴서 해라. 없는데 흥청거리다가는 깡통을 2개, 3개씩 차고 거리에 주저앉는다. 개인도, 교회도, 섭리사도 그러하다.

20.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코치해 주는데, ‘거두는 것’은 별로다. 기성에서 ‘5만 잠언’을 들려주고 설교해 줬으면 어찌 뛴겠느냐. 아마 황금성을 이뤘을 것이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얹으니 그러하다. 모두 <열심히 하는 자들>같이 해라.

21. <가뭇 때>가 오면 거목들도 시들게 되니, 그 전에 부지런히 키워 열매를 따야 된다. 그러면 가뭇이 와도 상관없다. 이와 같으니 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여 ‘신앙의 열매들’을 열여라. <전도>다. 혼자 하는 자는 뺏긴다. <주>와 함께 하고, 모두 뭉쳐서 해라.

<2018년 1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토끼의 삶>이나 <토끼가 누리는 즐거움>을 ‘사슴’이 부러워하거나 희망하지 않는다. <사슴>이 ‘토끼의 삶’으로는 만족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2. <토끼들>은 아무리 최첨단의 삶을 살아도 ‘사슴의 만족’을 못 누린다. <토끼>가 ‘사슴’이 돼야 그때 누린다.

3. <토끼>와 <사슴>은 ‘종’이 다르다. ‘뇌’가 다르다.

4. <인간>은 ‘서로 같은 종’이다. 다만 ‘삶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자는 적게 누리기도 하고, 어떤 자는 많이 누리기도 한다. 가령 부자는 일반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누린다.

5.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진 ‘같은 종’이다. 다만 인간은 ‘육신’을 가졌다. <근본자이신 삼위>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듯 낳았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같은 모양과 형상을 가진 ‘같은 종’이다. 다만 인간은 <육>을 통해 절대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니, 인간은 ‘육신’을 가졌다. 인간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하면, 육체를 벗고 ‘영체’로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위치’까지 가서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아예 이것을 목적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6.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면, 날개도 생기고 그 형체도 아예 달라지고 그 삶도 달라진다. 탄 곤충이 된다. 이같이 <사람>도 ‘구원받고 휴거된 영’은 그 전과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 산다. <최고>는 ‘휴거의 영’이다. 휴거되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된다.

7. 하나님은 인간을 ‘같은 종’으로 창조하셨기에 구원받고 휴거되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아예 다른 존재가 되어 산다. 그러나 <육>은 이같이 변하지 않는다.

8. <육>은 마치 ‘허물을 벗기 전의 애벌레’와 같다. <육의 행실>을 통해 ‘영’이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면, 애벌레가 아예 다른 모양과 형체를 가진 나비가 되어 다른 삶을 살듯 <그 영>은 ‘육신의 삶’과 아예 다른 삶을 산다.

9.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과 같은 종에 속한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인간도 하나님도 만족 없

이 살았을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을 <토끼>와 <사슴>같이 다른 종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슴>과 <사슴>같이 '같은 종'으로 창조하셨다. 곧 그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영'이다. 그중에서도 '신부로 변화된 영, 휴거의 영들'이다. 이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같은 종'으로 창조하시어 마치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하늘로 날아가듯 인간이 육체를 벗고 영이 휴거되어, 그 영이 완전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살게 하셨다.

10. 하나님은 인간을 '같은 종'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살려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만일 하나님이 '같은 종'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상대로 인한 기쁨도 없고, 상대의 사랑도 못 받고, 곤고하고, 만족이 없었을 것이다. 고로 외로운 전능자가 되고, 적적한 전능자가 되었을 것이다.

11. 인간들이 지능이 낮아 말썽을 부리고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아예 '다른 종'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마치 사슴이 토끼를 낳듯 한 것과 같아서 만족도 기쁨도 없었을 것이다. <사슴>이 아무리 '토끼의 삶'을 봐도 만족도 즐거움도 기쁨도 없다. 고로 <사슴>이 <사슴>을 낳아 키우고 사랑하고 만족하듯이, 하나님은 '같은 종'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12. 삼위는 '만족한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니, 누구나 자기를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더 열고, 더 누리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새벽에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도 더 노력하여 자기를 온전히 만들고 살면, 그만큼 더 누리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기쁨으로 살게 된다. <영>도 그러하다.

2. 같은 지구 세상에 살아도 북한은 고통을 누리고 산다. 아예 '고통 체제'다. 만든 대로 느끼고, 만든 대로 받고 살아간다. <민주주의 체제>로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3. <집>도 '큰 집 체제의 삶'과 '작은 집 체제의 삶'이 다르다. <잘사는 자의 체제>로 만들어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누린다. 바꾸기 전에는 안 된다.

4.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구시대 체제'가 있고 '새 시대 체제'가 있다. <구시대>에서는 '새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 수 없고, 거기서 '새 시대의 삶'을 살 수도 없다. 아예 다르다.

5. <음식>도 같은 재료라도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아예 다른데, '구시대 체제'와 '새 시대 체제'가 같겠느냐.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 체제'와 '신약 체제'가 다르다. <다른 원인>은 첫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르기 때문이고, 셋째, 그 시대에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6. <구약> 때는 '선지자 모세'를 믿고 따르면 '종급 구원'을 받았고, <신약> 때는 구약인들을 구원하려고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녀급 구원'을 받았다. <새 시대>에 와서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신부급 구원과 휴거'를 이루게 된다. 이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그로 인해 얻는 '구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다. 이는 마치 주인이 집을 짓는데, <일반 집을 지을 때>와 <아파트를 지을 때>와 <별장이나 궁을 지을 때>가 다르듯 다르다. 같은 주인이라도, 그때마다 집을 짓는 사람도 다르고, 주인이 그들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것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고로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시대에 따라 체제가 다른지 알아라.

7. 같은 하나님이라도 시대가 성장함에 따라 '그 시대에 계획하신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최고 목적인 창조 목적'을 두고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이며 역사를 펴 오셨다.

8. <구약> 때는 아직 시대가 발달이 안 돼서 '일반 집'을 짓고 사는 때와 같고, <신약> 때는 시대가 발달되고 사람도

성장해서 ‘아파트’를 짓고 사는 때와 같다. 그 삶도 그러했다. 그리고 시대가 최고로 발달하고, 사람도 성장해서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되었다. 고로 하나님은 ‘최고 목적’을 두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어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새 시대 체제’를 만드셨다. 고로 <그를 믿는 것>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이같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다르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상이 다르다.

9.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일>을 행하시며, ‘이 세상’도 더 좋고 새롭게 하시고 ‘천국’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라. <사람>도 늘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안 하시겠느냐.

10. <황금성 천국>은 땅에서 ‘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그 영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완성되어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부활되어 날아가듯 휴거된 자들이 가는 세계다.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하시고 6000년 구원역사를 펴 오셨다. 이미 하나님은 ‘최고 목적’을 이루셨고, 나머지도 이루고 계신다.

11.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자’이시다. 사랑의 만족을 영원히 누리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계획적으로 역사를 펴시며 그 목적을 이루신다.

12. <구시대>를 벗어나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만 휴거 되어 ‘하나님의 최고 목적과 뜻’을 이루고 만족하며 산다.

13.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옛것’은 미련 없이 버린다. <더 좋은 별장>을 발견하면, ‘옛집’은 얼른 팔고 ‘더 좋은 새 집’을 산다. 이같이 사람도, 물건도, 작품도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마음과 생각이 거기로 간다. 하나님도 시대가 갈수록 ‘더 좋은 새 시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족하며 사신다. 더 좋은 환경이다. 더 좋은 황금성 천국이다. 저마다 자기도 ‘더 좋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라.

14. 삼위는 최첨단의 이상을 이루며, 새것을 얻고 살기를 원하신다. 또 더 큰 사랑과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 사랑은 ‘휴거의 사랑’이다. 더 차원 높은 ‘휴거 1000선의 사랑’이다.

15. <사람>도 자기에게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만족한다. 가령 음식도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으면,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만족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 역사하신다.

16. 하나님은 <신>이지만, ‘인간’을 통해 역사를 펴신다. 고로 아기가 크고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대하듯 시대가 발달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대로 대하시며 차원 높여 역사해 오셨다. <사람>도 20년 전에 하던 대로는 안 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옛날 6000년 전같이 하시겠느냐. 2000년 전 예수님 때같이 하시겠느냐. 일개 개인만 돼도 ‘과거에 하던 뒤 떨어진 일’을 반복해서 안 한다. 하나님은 월명동 개발하듯이 계속 차원 높여 새롭게 하신다.

17.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것>을 그리 좋아하신다.

18. <주>는 그와 일체 되어 사니, 늘 ‘새로운 삶’이다. 고로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살면, 늘 ‘새로운 삶’이다. 그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교회>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도 ‘더 좋은 말씀’을 주신다. 이같이 <노래>도, <환경>도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19. 새롭게 더 해야, 새로운 삶이다.

20. <성삼위>는 ‘새로운 세계의 존재자’이시다. 고로 매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21. 새롭게 해야, ‘희망’을 이룬다. ‘목적’을 이룬다. <이상세계>에 가게 된다.

22. <황금성 천국>도 ‘새로운 세계’다.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사랑’으로 가게 된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해당되는 자>와 어울리는 것이다.
2. <존재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과 어울리는 것이다.
3. <하나님>은 ‘성령님’과 어울리신다. 땅에서는 ‘사랑의 대상, 휴거된 신부들’과 어울리신다.
4. “어울린다.” 함은, ‘조화, 연결, 짝’ 등을 말한다.
5. <남자>에게는 ‘여자’가 어울리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어울린다.
6. <계절에 맞는 옷>이 어울리듯, <돌>에는 ‘소나무’가 어울린다. 고로 월명동의 바위 절경에 소나무들을 심었다.
7. <노래 가사>도 그 배경에는 그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다.
8. <그 내용>에는 그 목소리와 그 가창력이 어울린다.
9. <이 시대>는 ‘새 시대’인데, <기성>은 ‘옛 시대’에 살면서 ‘옛 시대 옷’을 입고, ‘옛 시대 말’을 한다. 고로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10. 하나님은 ‘기다리던 자’를 시대에 맞게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 휴거의 뜻’을 펴셨다.
11. 저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삶’을 산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된 자>는 그와 어울리게 살아간다.
13. <이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은 잔칫날에 밭에 나가 일하는 자들과 같다.
14. <시간을 쓸 때>도 ‘하늘 시간’에 어울리게 살아라. <때 지난 후에 하는 자>는 ‘시간과 때’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자들이다.
15. <광명한 빛>과 <돌>과 <나무>와 <물>이 어울려 ‘천국 같은 세계’다.
16. <악한 자>와도 어울리지 말고, <악평자>와도 어울리지 말아라.
17. <영원한 의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살려면, ‘삼위와 주’와 어울리고 동행하며 살아라.
18. 그 환경과 어울리게 입고 행하기다.
19. 어울리지 않으면, 보기 싫고 눈에 거슬린다. 아름답지 않다. 고로 싫어한다.
20. 어울리지 않으면, 생각도 마음도 안 맞는다.
21. <6000년 구원역사 중에 인생들에게 최고 어울리는 역사>가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역사, 휴거 역사’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절대 사랑으로 행한 자들은 땅에서도 ‘삼위와 주의 사랑’으로 어울려서 살고, 그 영들도 황금성 천국에서 삼위와 주와 사랑하며 영원히 산다.
22. 자기가 만들어진 대로, 깨끗하게 한 대로 ‘그 환경, 그 시대’와 어울려 살아간다.

23. <악한 자, 공의롭지 못한 자>는 자기가 그같이 생각하고 행한 대로 ‘악한 세계’와 어울린다. 고로 그 세계로 찾아가서 산다.
24. <자기 욕도 영도 빛나게 만든 자>는 ‘빛나는 곳’으로 찾아가서 산다.
25. <사람>도, <존재물>도, <글>도, <단어>도 거기에 ‘어울리는 것’을 붙여 놓고, 묶어 놓고, 못도 박아 하나 되게 한다.
26. 어울려야 ‘조화의 세계’다. 아름답게 된다.
27. 닻은 대로 거기에 맞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닌다.
28. <집>도, <환경>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닻은 차원대로 좋아한다.
29. <종교>도 ‘자기 수준, 자기 차원’대로 찾고, 거기에 어울려서 좋아하며 산다.
30.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사명자’를 보내시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시며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울리게, 조화롭게 역사하신다.
31. <월명동>도 ‘하나님의 때와 시대’에 따라 ‘이 시대’와 어울리게 구상하여 만들었다. 이 시대는 <조화의 시대>다. 고로 ‘돌, 나무, 호수, 운동장, 잔디광장, 산, 산책로, 등산로, 수영장’이 조화를 이루게 만들었다. <조화의 시대>의 ‘대결작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이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좇는 자들도 그러하다.
32. 좋아하는 대로 어울린다.
33. 사명대로 어울린다.
34. 정리하고 질서 있게 해야 어울린다.

<2018년 1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육신의 병>이 들었는데 못 고치면 고생하고, 육신의 기능을 못 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신앙의 병>도 그러하다.
2. <밥>을 못 먹으면 바로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일을 못 한다. 이같이 <진리의 말씀>을 제때 안 듣고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면, 바로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서 ‘영의 일, 신앙의 일’을 못 한다.
3. 말씀을 제때 듣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귀히 여기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10일, 20일씩 밥을 못 먹은 자’와 같아서 행할 힘이 없으니 ‘영적인 힘’을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 그러다 ‘영적인 힘’이 아예 없어져서 세상을 접하고 나가기도 한다.
4. <이성이나 동성에 자기 생각을 뺀 자들>은 섭리사에 있어도 취미로 교회에 다니듯 하니, 그 영이 ‘흑암’에 가 있다. 고로 그 욕을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를 못 한다. 모두 회개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야, 혼도 영도 매인 것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혼과 영’이 된다.
5. 음란물이나 TV, 세상 썩은 문화를 안 끊고 계속 접하면, 그 영은 ‘휴거의 영’이 안 된다. <휴거된 영>은 ‘죄의 주관권’에서 벗어났기에 그런 것들을 안 한다. 모두 회개하고, 육신이 공적을 쌓으며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정상적으로 행해야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때가 되면 휴거된다.

6. <휴거된 영>이라도 ‘이성이나 음란물, 세상 썩은 문화’를 조금씩 접하면, 옷에 점점 때가 묻듯 하여 그 영이 결국 휴거 기준선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 아예 세상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7. TV도 ‘뉴스나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 <볼 것>은 보고 알되, ‘썩는 문화’에 중독되어 시간을 쓰지 말아라. <썩는 문화>에 중독되어 시간을 쓰면, 자기 갈 길을 못 가고 공적을 못 쌓게 된다. 고로 영에게도 많은 손해가 간다. <꼭 필요한 것>만 봐라. 뉴스나, 세계 각 나라의 문화 등이다. 교훈적인 것들이다.

8. <세상 노래>는 육적이고, 육만을 위해 노래한다. 고로 만 번을 불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신 ‘섭리사 새 노래’를 불러라.

9. 하나님은 섭리사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끊으라고 했다. 하나님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신다. <술, 담배를 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앞에서 술, 담배를 하는 자다. 모두 배은망덕한 자들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술을 먹다가도 결혼하면 싹 끊는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시대 택한 신부들’인데 다 끊어야 하지 않겠느냐. 운동 경기만 봐도, 선수로서 술이나 담배를 다 끊게 하고 경기에 출전하게 한다. 습관이 되어 안 끊고 술이나 담배를 하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책을 가진 자들은 자동으로 직책 상실이다. 고로 먹으면 자기가 먼저 직책을 내려놓아라. 직책을 임명받고도 술을 먹는 자들이 있으면 이야기해라.

10. 숨어서 술이나 담배를 하면 사람들은 모르니, 섭리사에서 같이 지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 그 육도 혼도 영도 선을 넘어 ‘사망’에 처해 산다.

11. 100% 끊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서라. 끊을 것을 못 끊으면, 결국 자기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된다.

12. 방금 기도하면서 <죄>를 두고 ‘목욕탕 비유’를 들어 하나님께 간절히 물어보기를, 목욕탕에서 깨끗이 씻고 정말 때가 안 나올 때까지 씻었는데 몰랐거나 생각이 안 나서 손톱 밑이나 귓속이나 입을 못 닦고 나왔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간절히 하면, 쓰레기를 불에 태워 소각하듯 죄를 소각시킨다. 마치 씻덩이에 개미가 붙어서 득실거리는데 불에 넣으면 하나도 안 남고 타 죽듯이 ‘죄를 지었는데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 것’도, ‘미처 생각을 못 한 것’도 다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회개하면 ‘성령의 불’과 ‘말씀의 불’로 태워 소각시킨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회개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셨다.

13. <죄>를 즉시 회개하지 않고 한 트럭씩 모았다가 회개하면, 마치 빨래를 미뤄 뒀다가 혼자 30벌, 40벌씩 힘들게 빨아야 하는 것과 같아서 힘들다. 고로 <그날 회개할 것>은 얼굴 씻듯, 손 씻듯 순간순간 회개해서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늘 깨끗하니, 사탄도 죄를 잡고 힐문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도 죄로 인해 양심에 가책되지 않으니, 꺼림이 없다.

14. 살면서 깨끗하게 하고 살기다. <신앙생활>을 하면,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15. 성령님 앞에도 ‘청결’이다.

16. 매일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라. 하나님은 늘 아주 가까이에서 보신다. 고로 <죄>로 냄새나지 않게 해라. <죄>로 ‘어두운 옷’을 입으면 안 된다.

17. <죄>를 ‘옷’으로 입는다. <그 행실>을 ‘옷’으로 보인다. 고로 <죄지은 자들>을 보면, 그 혼이 어둡고 까맣게 옷을 입고 다닌다. <하나님께서 죄를 밝히실 때>는 그리 보이신다. 고로 혼의 세계만 가도, ‘혼이 입고 있는 옷’으로 그 행실을 보니 못 속인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으면 이성 죄인지, 혹은 다른 죄인지도 분별해야 된다. 신앙을 하다가 마음이 변해도 그 혼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자기가 자기 상황을 두고 기도하며 보아라. <혼의 세계>는 ‘꿈’을 통해 다 보니 쉽다.

18. <자기 혼의 키>가 큰가, 작은가 보아라. 모순이 있으면, <육의 키>가 커도 ‘혼의 키’는 작다. 어떤 자는 육의 키가

180cm 정도 되는데, 혼은 160cm 정도 되기도 한다. <혼>이 안 커서다. <이성 죄>를 지었거나, <다른 죄>를 지었는데 계속 회개를 안 하면, 혼이 키가 안 크고 작다.어떤 자는 영계에서 보면, 키가 150cm, 140cm, 120cm, 100cm 정도 된다. <육>은 다 큰 어른인데도 그러하다. 안 커서다.<육신의 행위>대로 '영과 혼의 모습'이 결정된다.

19. <영계>나 <혼계>에서는 '다른 자'를 비유해서 상징으로 보일 때도 있다. 이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20. <꿈>에서나 <생시>에서 '계시'를 줘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꿈>을 꿔으면, 주신 자께 물어야 된다. <계시를 주신 자>께 물으면, 깨닫게 해 주신다.

21. <상징 계시>는 문자 그대로 풀듯 '보인 자' 그대로 풀면 못 푼다. <상징 계시>는 직접 안 보이고, '다른 자'로 보인다. 고로 <A>를 'C'로 보이는데, 문자 그대로 "C구나." 하고 풀면, 마치 기성인들이 주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한 말을 문자 그대로 '구름'으로 푸는 것과 같다. <보인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풀어야 된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즐거워야 모든 것이 즐겁다.

2. <자기 몸>이 예뻐도, '생각'이 괴로우면 예쁘게 안 보인다.

3. <생각>이 기쁘면 자기 몸도, 집도, 환경도 좋고 아름답게 보인다.

4. <생각>이 기쁘지 않으면, 자기 몸도 나쁘게 보고 흠을 잡고 지적한다.

5. <생각>을 기쁘게 만들어야 '사람'도, '만물'도 아름답게 보인다.

6. 운동도 하고 화장도 해서 <몸>과 <얼굴>을 멋있게 만들어도, '생각'이 기쁘지 않으면 아름다운 몸과 얼굴을 봐도 기쁘지 않은 것이다.

7. <생각>은 '눈'과 같다. <눈>에 티가 들어갔든지 병에 걸려 아프면, 아름다운 것을 봐도 예쁘게 안 보인다. 이같이 <생각>이 괴롭고 기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보인다.

8. <세상의 모든 자들>은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보고 대하며 살아간다. 어떤 자는 '자기 마음과 생각'이 즐거우니,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쁘게 살아간다. 어떤 자는 '자기 마음과 생각'이 괴롭고 기쁘지 않으니, 집도 환경도 좋고 얼굴도 몸도 멋지고 아름다운데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

9. <생각>은 '맛'과 같다. <맛>을 못 느끼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별맛이 없다고 한다. <맛을 제대로 느끼는 자>는 보통 음식도 맛있게 먹는다. 그러니 <맛을 잃은 자>는 이해를 못 한다.

10. <맛>도 '신경'에서 좌우되고, <생각>도 '신경'에서 좌우된다.

11. <맛>은 '혀신경'에서 좌우되고, <생각>은 '뇌신경'에서 좌우된다.

12. <신경>이 제대로 못 느끼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보통'으로 느낀다.

13. <뇌신경과 생각>이 기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보고 취하여도 기쁨이 별로 없다.이렇게 말함은 "네 마음과 생각을 기쁘게 만들어라." 함이다. "뇌신경과 생각을 정상으로 만들어라." 함이다. 그래야 제대로 다 느낀다.

14. <뇌>가 굳고 <신경>이 예리하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도 제대로 못 듣는다. 마치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와 같이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끼듯 한다.

15. 기도하여 신령하게 하고, 뇌의 생각도 혼도 영도 제대로 보고 느끼게 하여라. 그래야 문제들이 안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고 뇌신경이 예리하지 않으면, '뇌신경이 예리하여 제대로 생각하고 기쁨을 느끼는 자'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하나가 안 된다.

16. <생각이 병든 자>는 <건강한 자>를 따라 같이 활동하며 하나 되어 살지 못하니, 어서 건강을 회복하여라. <생각>을 기쁘게 하고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크다.

17. <생각이 병들고, 무디고, 생각의 맛을 잃은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그리 잘해 줘도 조금 느낀다.

18. 섭리사 안에서도 <생각과 마음이 병든 자들>은 주가 그리 잘해 줘도 조금 느낌을 받고, 조금 잘해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로 인해 피곤하다. 그들의 짐이 무겁다. <병든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된다.

19.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과 생각>으로 일체 되어 하나 돼야 '기쁨의 맛'을 느끼며 같이 살게 된다.

20.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여 살아도 생각이 병들어서 '생각의 맛, 기쁨의 맛'을 못 느끼면, 사랑을 많이 해 주고 잘해 줘도 모른다. 고로 "만족이 없다." 하며 떠나가나, 병든 마음과 생각이라 어디를 가도 입맛을 잃은 자와 같이 맛이 없고, 마음이 곤고하고 허무하다. <전능자 주권관>에서 '생각'을 온전히 만들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21. <육신이 병든 자>는 '맛'도, '기쁨'도 제대로 못 느낀다.

22. <신앙의 병이 든 자>, <생각의 병이 든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며 대하는 맛, 신앙의 맛'을 제대로 못 느낀다. 그러니 기쁨도 조금 느끼고, 성삼위와 주가 주셔도 기쁨을 조금 느끼고 살아간다. <신앙의 맛, 생각의 맛>을 잃어서다.

23. <눈이 아픈 자>는 눈을 고쳐야 사람도 만물도 제대로 본다. <생각이 아픈 자, 신앙의 병이 든 자>는 매일 기도하고, 생활도 고쳐야 된다.

24. <근육>은 '생각'으로 커지지 않는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일 년씩 해야 근육이 커지고 아름답게 된다. 하루 이틀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 아니다. <신앙>도 그러하다. 하루 이틀에 잘해지지 않는다. 매일 꾸준히 하여 '생활'이 돼야 된다.

25. <마음과 생각>이 기뻐야 모두 기쁘게 보인다.

26. 섭리사에서 <마음과 생각이 병든 자들>이 늘 문제를 일으킨다. 자기와 의견이 안 맞으니 다툰다. 모두 고쳐라.

27. 두 사람이 있는데, 모두 똑같이 잘해 줬다. 잘해 줬어도 한 명은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갔다. 이는 마음과 생각에 '병'이 있어서다. 그 병 때문에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그 병은 본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생긴 것이다. 그것이 '죄'가 되었다.

28. <죄>는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한다. <회개>하면 병을 수술하여 치료하듯 죄가 없어지는데, <병>을 알고도 숨기고 수술을 안 하니 그 병으로 인해 한계를 맞게 된 것이다.

29. <병>이 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병이 악화되듯,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만히 놓아두면, 죄가 번져서 생명을 빼앗아 간다. <의사>가 병을 진찰하고 지적하니, 부끄러워서 도망간다. 그러니 그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된다.

30. <죄>는 '병'과 같다. <병>은 '치료'해야 되듯,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

<2018년 1월 2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죄>는 ‘그릇된 길’이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절벽과 암벽을 만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

2. <죄의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회개’다.

3.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죄>는 ‘법’과 ‘순리’를 벗어난 것이라, 혼자 아무도 모르게 지었어도 결국 그 비원리적인 행위가 자기를 잡아 고통을 준다. 그러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한다. 고로 <아는 자>는 ‘죄의 행위’를 못 하게 하고 거기서 꺼내 준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곡하게 생각하며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막는다고 한다. 이는 어린아이가 밀물이 들어오는데도 좋아서 계속 조개를 주우며 기뻐하는 격이다. 엄마가 하지 말고 나오라고 해도 자꾸 주우며 안 나오다가 밀물이 덮쳐서 물을 먹고 그제야 소리 지르며 꺼내 달라고 한다. 만사에 ‘하나님의 지상 법’을 범하면 이러하다. 고로 절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행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과 생각의 법>도 그러하다.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는 “나는 신앙 잘했다.” 한다. 근본을 알면, 모두가 충격 받는다.

4. <암>도 전이되어 번지기 전에 수술해서 고쳐야지, 번지고 나면 생명을 뺏긴다. <신앙의 죄>도, <생각의 병>도 번지면 고치기 힘들고, 고통을 받고, 신앙을 뺏기기도 한다.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합리화 하지 말아라. 삼위와 주께 네 생명이 붙어 존재하니 온전히 행하여라.

5. <생각>을 잘못하면, ‘줄 끊어진 연’과 같이 된다. <자기 생각>을 늘 삼위와 주께 묶어 놓고 살아야 된다.

6. <주>는 성삼위와 일체 되어 산다. 고로 주께 자기 생각을 묶어 놓고 사는 자에게는 ‘황금성 천국’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주의 말뚝에 자기 생각을 묶어 놓아라. 영영하다.

7. <자기>가 ‘자기’를 병들게 한다. 모두 보면, 자기 잘못이 95%가 넘는다.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95%가 자기 책임이다.

8. <섭리사를 악평하고 나간 자들>도 ‘자기’가 나갔다. 결국 그 욕도 영도 어떻게 되겠느냐. 절대 <하나님의 법과 순리>를 벗어나면, 거기에는 ‘사망 주관권의 삶’이다.

9. 모래사막에서 아무리 잘해 놓고 살아도, 그 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아예 거기서 나와서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러지 않고 사막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 환경과 기후의 영향을 받으니 해결이 안 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관권에 있으면, 그 주관권의 영향을 받는다.” 하셨다.

10. <구약>과 <신약>과 <성약>은 ‘위치’도 다르고, 하나님이 펴시는 ‘뜻’도 다르다. 고로 그 주관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그 시대에 해당되는 근본 역사’를 하나님은 펴지 않으신다.

11. <구약인들>이 ‘신약역사’로 안 오고 ‘구약’에 있으면서 “우리도 신약역사와 같이 자녀급, 형제급으로 살자.” 한다고 하나님이 그리 대해 주시겠느냐. 그러다고 ‘신약급 구원’을 받겠느냐.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과 같다. <신약인들>이 ‘성약역사’로 안 오고 ‘신약’에 있으면서 “자존심 상한다. 우리도 신부 되어 살자.” 한다고 삼위가 신랑 되어 살아 주시겠느냐. 그러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자를 보내 주시고 그를 통해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해 주시겠느냐. 안 된다. 절대 하나님의 새 역사로 와야 된다. <돌감나무>는 절대 ‘참감나무’로 접붙여 커서 참감을 열어야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 <돌감>이 “우리도 참감이다.” 한다고 주인이 ‘참감’으로 인정하겠느냐. 모두 따다가 ‘돌감 창고’에 넣고 먹는다.

12. <월명동>을 보아라. <표상 돌과 소나무들>은 ‘크기’도 크고, ‘위치’도 다르다. 다른 돌이나 나무들은 일반 조경이다. <일반 것>인데, “표상이다.”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겠느냐. <표상>은 그 주인이 있어서 늘 관리해 주며 사랑해 준다. 이같이 <신부 시대>는 ‘말씀’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급’도 다르다. 이 시대는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신랑과 사랑하며 살아간다. 삼위와 주를 신랑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나도 신부다. 신랑과 산다.” 해도 그 대상이 삼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니 그들을 ‘신부’로 대해 주지 않으신다. 오히려 동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상을 만들어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며 사니, 하나님은 이를 ‘죄’로 정하시고 “그런 자들은 신부가 아니다.” 하신다. 모두 비정상

이다.

13. <신약>은 ‘자녀급 세계’이고, <성약>은 ‘1000년 혼인 잔치 세계, 하늘의 삼위가 신랑이 되고 땅의 따르는 자들이 신부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세계’다.

14. <같은 짐승>이라도 고양이와 호랑이가 다르고, 토끼와 사슴이 다르고, 소와 물소가 다르다. <같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시어 보낸 자가 난 땅’과 ‘일반 땅’이 다르다.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역사하시어 ‘신령한 노래’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난 땅에서 계속 부르게 하신다. ‘그 땅’에서 개인, 민족, 세계를 조종하며 가신다.

15. <세상에서 육으로 살다 끝나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게 두시고, <전능자를 찾고 그를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그 ‘육’도 기쁘게 하시고, ‘영’에게 영생을 주시어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죄>에서 살면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 생각의 주관권’에 속할 수가 없다.

2. <죄>에서 살면, ‘생각과 행위’가 다르다. <회개>하고 죄에서 나오면, 생각도 행위도 ‘생명권’에 속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3.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그 영에게서 냄새가 난다. <죄의 썩는 냄새>다. <혼>이나 <영>에게서 각종 냄새가 나는 것을 순간 맡고 느낀다. <의를 행하며 깨끗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향기>, 혹은 <말씀의 향기>가 난다.

4.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기도 하고, ‘죄의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한다. <영적인 자>는 ‘육’으로 안 보고 ‘영’으로 보니, <영이 본 것>을 ‘육’이 느끼게 한다.

5. 신령하면, ‘육’을 보고도 느낀다. 어느 때는 얼굴이 어둡게 보일 때도 있다. 순간 계시해 보이신다.

6. <죄>를 지으면, 마치 암에 걸린 것과 같아서 쉽게 해결이 안 된다. <암>이 자꾸 크듯 하니, 이때는 수술하여 잘라내듯 해야 된다.

7.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여 주와 해결해 버려야 된다. 그러면 깨끗하다. 그러고서 다시 죄를 안 짓게 조심해야 된다.

8. 교역자가 죄를 소홀히 여기니, 한 교회에서 이성 문제가 10명, 20명, 40명씩 있어도 해결을 안 해 주고 있다. 그쪽의 소경이라 그러하다. 그 면의 전문가를 보내면, 그제야 안다. 그러면 목회자를 자격 부족으로 교체하게 된다. <운전 미숙자>와 같다.

9. <이성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계속 죄를 짓는 자>는 휴거가 됐다가도 자격이 안 돼서 그 위치에서 내려온다.

10. <술, 담배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수시로 하는 자>도 ‘하나님의 명을 어긴 자’가 되어서 그 역시 휴거 자격이 안 되니 그 위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확실하게 말해 주라고 하시어 말씀으로 전한다.

11. <죄>를 무섭게 여겨라. <죄에 대한 선고>를 받고 쫓값을 받으면, 4년에서 7년씩 간다.

12. <자기 혼>을 통해 ‘자기 영의 상태’도 보여 주시고, ‘만물’로도 자기를 깨닫게 해 주신다.

13. 하나님께 고하길, 섭리사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보니 죄인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의인들이 어디 있느냐.” 하셨다. <의인>이 없다. <메시아>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든다. <기계 부속품>도 본래 그같이 생긴 것은 없다. <바위에 박힌 철>을 가져다 ‘잡철, 잡돌’은 녹여

버리고 그중에서 ‘철’만 뽑아서 ‘기계 부속품’을 만든다. 이같이 <사람>도 그러하다. <금>도 ‘금이 박힌 돌’을 녹인 후에 돌은 버리고 ‘금’만 빼내서 필요한 대로 만들듯이 <사람>도 ‘뜨거운 말씀의 용광로’에 녹여서 ‘그 의’만 남기고 죄는 버리고, 그 <의>로 주를 믿고 순종하며 자기를 구원시키고, ‘하늘에 속한 휴거의 영’으로 만들어 간다. 그 <의>로 자기 육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간다.

14. <자기 육>도 <영>도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면, 그 자손들도 ‘선조’를 닮아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그러했고, <모세의 자손들>도 그러했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하다. <아브라함 자손들>은 그같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자손들>은 모세를 따라 절기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신앙생활을 한다. 거기서 벗어나 ‘새 시대’에 와서 ‘새 시대’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 이같이 후대들은 ‘선조들’을 따라 신앙을 하게 된다. 그러니 “<이 시대>는 ‘이 시대 보낸 자’를 따라 ‘그’같이 신앙을 하라.” 함이다.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혼>은 ‘삼위’와도, ‘천사’와도 통하기 쉽다.
2. <육체>는 ‘혼체나 영체’와 다른 존재체라, <육체>로는 ‘신’과 안 통한다.
3. <육체>끼리는 ‘한 세계’라 금방 통한다. <영체>끼리도 ‘한 세계’라 금방 통한다. 그러나 <육체>는 ‘혼이나 영’과 다른 존재체라, <혼이나 영>과는 잘 안 통한다. 잘 못 느낀다. 다만, ‘마음과 생각’으로는 통한다. <느낌>이다. <감동>이다.
4. <마음>은 ‘하나의 뇌’다. <뇌신경>은 예리하니, ‘마음과 생각’으로 통한다.
5. <사람>끼리도 일체 되면 ‘하나’라, 바로 통한다. <일체>가 안 되면, 사람끼리도 안 통한다.
6. 하나님도 <영>으로는 통하기 쉽다. <혼>으로도 통하기 쉽다. 그러나 <육>은 같은 존재체가 아니라 통하기 어렵다. 이는 마치 ‘자기 몸’과 ‘다른 사람의 몸’이 다르니, ‘자기 몸’을 만져도 ‘다른 사람의 몸’과는 안 통하고 못 느끼는 격이다.
7. <육체>와 <영체>는 다른 존재체라, ‘자기 영’이라도 ‘육’과는 안 통한다. <부부>도 한 몸이지만,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남자는 못 느낀다. 이는 각각 두 존재체라 그러하다. <부부>가 한 몸이라도, 따로 존재해서다.
8. <육체>와 <영체>다. <부부>가 한 몸이어도 서로 다른 존재체로 존재하듯 <육체>와 <영체>도 그러하다. <육체>와 <혼체>도 그러하다.
9. <혼체>는 영체보다 ‘육체’와 가까우니 잘 통한다. <혼체>는 ‘육의 정신과 마음’과 더 닮았다. 고로 <영체>를 볼 때는 ‘혼’을 통해 본다.
10. <육>이 삼위와 통하려면, ‘영에 속한 혼이나 정신’으로 통해야 된다. <생각>으로 통해야 된다. <뇌신경>으로 통해야 된다. <깊은 기도>를 하여 ‘신령한 마음’으로 통해야 된다.
11. <삼위>와는 ‘꿈의 혼’을 통해 통하기도 한다. <꿈의 신령한 세계>로 통한다.
12. <육신의 생각>이 ‘혼’에 속해 있을 때, 즉 육성이 잠들었을 때 삼위와도 잘 통한다. 그때 ‘혼’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낮>에는 ‘육’으로 잘 통하니, 하나님은 ‘만물’을 보이시며 통하게 하신다.
13. <통하는 방식>을 알아야 통한다. <삼위와 통하는 절대 길>이 있다. 모르면, 100년이 가도 안 통한다. 모르면, 일생이 가도 ‘자기 영’을 보기 어렵다. 한 몸에 속해 있어도 ‘존재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14. 이웃에 살아도 자기 식구가 아니니, ‘통하는 길’을 모르면 10년, 20년이 가도 안 통한다.

15. <하나님>은 ‘자기 육체인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사람들과 통하신다. <메시아>는 ‘육’이니, 그를 통해 사람들과 가장 많이 통하신다. 그 육신을 쓰고 ‘시대 뜻’을 펴며 모두 행하신다.

16. <신의 본체>만 ‘신의 몸’을 본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쓰고 행하시니, 그를 통해 자신을 비춰 보이신다.

17. 사람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쓰고 나타나서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보낸 메시아’를 통해 행하신다.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와 일체 되어 행하신다. 고로 ‘그’를 통해 하나님과 제일 잘 통할 수가 있다.

18.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당세 역사’를 펴신다. 그 기간이 끝나면 당세 때 편 역사를 가지고 ‘그 주관권에서 믿고 따른 자들’이 나머지 역사를 펴게 하신다. 그때는 개인들이 기도하여 응답받고 통해야 된다. <당세>가 그리 크다. <당세>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성령님과 성자가 직접 오셔서 그 육신을 쓰고 하신다.

19. <주의 육신>이 죽으면 하늘에서 다스리며 역사를 펴고, 천사나 따르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편다.

20. 하나님은 ‘메시아가 살아 있을 때’ 가장 실감 있게 역사를 펴신다. 나머지는 ‘믿고 따른 자들’을 통해 펴신다.

21.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냈을 때’ 그 시대, 그 주관권의 최고 목적을 이루신다. <남편>은 ‘부인’이 있을 때, ‘부인’을 통해 최고 역사를 편다. 부인이 죽으면, ‘자녀들’과 펴니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살아 있을 때 그를 통해 직접 ‘최고 역사’를 펴시고, 그가 죽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펴신다.

22. <최고 역사>는 이 땅에 성자가 강림하신 후 70년 동안 한 일이다. 그중 최고의 때는 ‘시대 신부들을 키워서 휴거 역사를 할 때’까지다. 또한 ‘나머지 휴거 역사를 땅에 보낸 자가 할 때’까지다.

23. <당세 것>은 다 하고, 삼위는 ‘따르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펴신다.

24. <때>가 중요하다. 모르면, 10년, 20년 동안 주를 따랐어도 ‘일반인’과 같다. 고로 구원도, 휴거도 제대로 못 이룬다.

25. <섭리사>도 한 명씩 보면, ‘A, B, C’로 되어 있다. 최고는 ‘A급 차원’에 있고, 그다음은 ‘B급 차원’에 있고, 그다음은 ‘C급 차원’에 있다. <C급 차원>에는 ‘일반 신앙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근본’도 모르고,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휴거를 이루지 못하고 ‘이 시대 사람’ 취급을 받는 자들이다. <B급 차원>에는 ‘주를 알고, 휴거 과정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 <A급 차원>에는 ‘주와 일체 되어 행하며 휴거 700선을 넘어 사는 자들’이 있다. 이같이 하나씩 보면, 다 쪼개져 있다.

26. 어떤 자는 자기가 전도한 자에게 ‘자기 주관’을 심어 줘서 ‘자기’를 중심하게 만들고, 자기를 주같이 따르게 했다. 그 영들을 보니, 휴거가 안 되고 ‘C급 차원’에서 걸돌았다. 지극히 육적인 자들이다. <주>를 모르는 자들이다. 섭리사에서 10년이 넘은 자들도 그러하다. 교역자들인데 모른다.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주와 함께 다 쪼개신다.

27. <자기 사고를 심어 주며 주 중심을 안 한 자, 그 사고를 중심하며 따른 자>는 ‘헛신앙’을 한 것이다. 영계에 가면, 그 영도 판 데에 가 있다. 먹을 것이나 사 주며, ‘육적 관리’만 해서다. 이들은 자기를 위해 관광을 다니면서 ‘관리’한다고 한다. 하나님과 주가 보낸 사명자와 면담하게 하여 드러냈다.

28. 교역자들이 ‘충성자들’을 안 세우고, 이성 회개도 안 한 자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쓴다. <파악>을 안 해서 그러하다. 찬양, 지휘, 피아노 반주, 사회 보는 것 모두 ‘회개하여 깨끗한 자, 본이 되는 자’를 써라. 교회 담임 목사들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낸다. 기도해도 모른다. 한 명, 한 명 파악해라. <이성>도, <공적>도 파악하지

않고 맡기면 안 된다. 외모만 보고 그냥 맡긴다. 그러니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쫓개고 제물을 드려야 사탄이 역사를 안 한다. 죄를 쫓개지 않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듯 하니, 사탄이 역사를 한다. 교역자들이 기도해도, 죄를 회개하여 청소하기 전까지는 동일하다. 그만큼 몰라서다.

29. 하나님은 휴거도, 급수도, 차원도 하나하나 다 저울에 달아서 보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행한 것을 다 보신다. <내적인 자들>은 ‘안 보이는 데’서 행하고, <외적인 자들>은 ‘보이는 데’서 행한다. 안 보이는 데서 하든, 보이는 데서 하든 사람은 몰라도 ‘자기 공적’은 그 행한 대로 영계에서도, 육계에서도 존재하여 ‘자기 것’이 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사>에 있다고 다 한 뭉텅이로 휴거되고, 의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노아, 욥, 다니엘이 있어도 각각 따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것>으로 ‘자기 구원’이다.” 하셨다.
2. <자기 만들기>다. 막연히 ‘주가 기억하시겠지.’ 하지 말고, 제대로 하여라.
3. <자기 상태>를 보아라. 어떤 자는 지극히 육적인데,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4. 교역자는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라. 외적, 내적으로 그 위치에 세워라.
5. <지도자>를 세우려면, 100% 파악하고 세워라.
6. 자기가 수준이 낮으면, 제대로 못 본다. <한 가지>만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누구나 ‘한 가지’는 다 좋은 것이 있다. 그것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보아라.
7. 누구든지 근본은 ‘말씀’에 온전히 서야 된다. <말씀에 온전히 선 자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세워라.
8. <아직 안 만들어진 자>는 ‘엔진 없는 차’와 같다. 그런 자를 세우면, 완전히 손해다.
9. 하나님께 ‘관리법’을 물으니, “개인으로 쫓개서 하고, 단체로 묶어서 100% 해야 된다.” 하셨다.
10. 성령께도 ‘관리법’을 물으니, “한 번 했다고 관리가 된 것이 아니다. 아기를 키우듯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해야 된다.” 하셨다.
11. 컸어도,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 누구든지 관리가 필요하다.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늘 관리다. 이것이 ‘주의 관리법’이다.
12.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심어 주어 삼위와 주를 제대로 알게 하고, 실천하는 신앙을 하여 ‘삼위와 주와 교통하게 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13. <막연한 신앙을 하는 자>를 확인해 보면, 생명록에 그 이름이 흐려져 있다. 아예 없기도 하다.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있으려면, <주>가 그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영계>에서 그 혼과 영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또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삼위와 주가 부르고 찾으면, 대답해야 된다. 늘 <성령>으로 교통해야 된다.
14. <주와 일체 된 자>는 언제나 주를 느끼고, 주와 통한다. 모두 두 증인같이 ‘주’와 붙어서 행해라. <내적인 자>, <외적인 자>다.
15. <성령과 일체 된 자>가 성령을 부르면, 늘 대답하신다. <성령>과 하루에 10번은 통해야 된다. <주>도 그러하다.

16. <부르기만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야기하고 통해야 ‘성장된 어른’인 것이다.
17. <사랑하는 자>는 진정 통한다.
18. <사랑>으로 ‘일체’가 이루어졌듯이, <대화>로 ‘성령과 주와 일체 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삶의 역사, 생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19. 삼위는 주와 함께 늘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본인만 들어오면 된다.
20. <걸 구경하는 신앙>은 관광지 동굴에 가서 걸 구경만 하고, 동굴 속 구경은 안 하고 돌아오는 자와 같다.
21. <삼위>와도 <주>와도 ‘속 구경’하듯 통해야 된다. 삼위와 주와 통하면, 신비한 동굴 속을 구경한 자가 된다. 고로 ‘걸 구경’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22. <육이 있는 자>는 ‘육’으로도 통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으로도 통한다.
23. <걸로 통하는 자>는 ‘연애하는 단계’다. <속으로 통하는 자>는 ‘결혼해서 사는 단계’다.
24. 통해도 속으로 통해야 된다. <신령한 속의 세계>다.
25. <걸>도 통하고, <속>도 통해야 다 통하게 된다.
26. <생각>은 ‘삼위와 주의 생각’에 끼우고, <육>은 ‘삼위와 주와 같이 행하기’다.
27. <걸 세계>는 ‘육’으로 보고 통하고, <속 세계>는 ‘혼이나 영’으로 보고 통한다.
28. <신령한 자>는 ‘혼’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한다.<육이 있는 자>는 ‘육’으로 통하고, ‘만물’로도 통한다.두 가지로 다 통하여라. <육>으로도 통하고, <영>으로도 통하여라. 항상 ‘두 가지’를 보아라.
29. 문제가 일어나면, ‘육적인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다.
30. <사탄 역사>도 빠트리지 말고 보아라.
31. 가령 지진이 나면, ‘영에 속한 문제’도 있고, ‘육에 속한 문제’도 있다. 모두 하나님과 연결돼 있다. 그중 하나는 ‘육적인 것’에 연결돼 있다.
32.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지 않고 영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은 짐승이나 벌레가 육신 세계에서만 살고 가듯 ‘육’에서 끝나는 인생으로 보신다. <짐승>이나 <벌레>는 ‘영’이 없다. <육>에서 끝난다. <사람>은 ‘영’이 있지만, ‘영 구원’을 못 받으면 육신도 땅에서 ‘사망의 삶’을 살고, 그 영도 ‘사망’으로 간다. 그 삶은 ‘짐승 같은 삶’이다.
33. <대상>은 모두 비슷하다. 삼위와 주가 ‘누구를 택했느냐’가 크다.
34. <택함을 받은 것>이 그리도 크다. <전체 중의 하나>다. 귀한 가치를 모르면, 가다 만다.
35. <그 하나>가 ‘전체의 핵’이다. <주>만 ‘전체 중의 하나’가 아니다. <자기>도 ‘온 인류 전체 중의 하나’다.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월명동 개발 전의 지역 작품>을 볼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작품>을 볼 줄 안다.” 한다.

2. <월명동 개발 전>에는 ‘월명동 지역의 모양과 형상을 본 자’가 지구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개발하고서 알았다. 고로 <개발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
3. 월명동을 개발하고도 처음에는 몰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깨우쳐 주시어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4. <미인을 볼 줄 아는 자>는 ‘꾸미지 않았을 때’도 보고 “미인이다.” 하고 안다.
5. 어떤 자는 꾸며 놓았어도 모른다. <지역>도 그러하다.
6. <산골짜기를 개발하기 전>에 보고 작품을 찾아내는 자는 ‘작품에 눈을 떠서 그 눈이 하늘까지 닿은 자’다.
7. <사람>도 ‘드러나기 전에 볼 줄 아는 자’는 ‘깨달은 자’다.
8. <나무>도 크기 전에 어릴 때 보고 “저 나무는 결작이 된다.” 하고 아는 자는 ‘엄청난 자’다. 그런 자는 거의 없다.
9. 하나님은 아시고, 때마다 이리저리 옮기면서 키우신다.
10. 더러워도 씻고 닦아 놓으면 깨끗하니, 버리지 말아라.
11. <썩은 것>은 아무리 닦아도, 빨아도 안 된다. 새로 사야 한다.
12. <선수>가 공을 ‘왼발’로 다뤄야 될 때가 있고, ‘오른발’로 다뤄야 될 때가 있듯이 ‘육’으로 다뤄야 될 때가 있고, ‘영’으로 다뤄야 될 때가 있다.
13. <사람>은 ‘다루기’다. ‘잘 대하기’다. ‘사방으로 보고 대하기’다.
14. <인생>은 마음도, 몸도 ‘사선(死線)’을 넘으면 그 운명이 판 세상이다.
15. 감정으로 대하여 찢값 외에 더 고통을 주는 것은 그리 행한 자가 대가를 받는다.
16. <감정으로 대하여 고통으로 뭉친 것>이 ‘수만 년’은 된다.
17. <법>만 알고 ‘사랑’을 모르면, 살인자가 되기도 한다.
18. <영혼을 살인하는 자들>의 ‘죄’가 크다. 이들은 자기가 그 찢값을 영원히 받아야 된다.
19. <세상의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따로 있다.
20. <지옥>에 가면, ‘영혼을 살인한 자들’이 많다. 그곳에서는 입으로 뱀이 들어갔다 밑으로 나오고, “나, 너 좋아한다.” 하면서 뱀이나 사나운 괴물들이 그 영들을 뜯어 먹으며 살아간다. 독이 든 지네도 눈으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고 “너 사랑해.” 한다. <고통의 지역>이다. 그곳의 법이 ‘고통으로 대하는 법’이다.
21. <지옥>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이 그대로 재현된다. 그런데 그 행위대로 ‘고통’을 받고 산다.
22. <천국>에도 산에 ‘산짐승들’이 다니는데 다 아름답고, 귀엽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산다. 모두 선한 동물들이다. 호랑이, 표범, 말, 기린 등 각종 동물들이 모두 귀엽다. 모두 <양>같이 선하게 다니고, 공격은 영원히 안 한다. 또한 <천국의 동물들>은 다 ‘영들’과 통한다.

23. 세상에서 살 때 자기 몸도, 생각과 마음도, 혼도, 영도 제대로 몰라서 판단을 못 하면, ‘망하는 삶’을 살아간다. 인생들, 99%는 모르고 살아간다. 자기가 안다고 해도, 1%만 겨우 알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나머지 99%는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니 육신이 죽어서도 그 영이 영원히 모르고 산다. <구원받은 영>만 뒤를 돌아보고 대강 안다.

24. 세상에서 선택을 잘못하면, ‘육’도 망하고 ‘영’도 망한다. 자기가 자기 신세를 멸한다.

25.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기고, 여행 다니고, 이성 사랑을 하며, 각종 명예나 물질 등을 얻고 즐기며 살지만, 세상에서 ‘자기 영’을 100% 구원해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실상 그 삶은 ‘영의 세계를 망치면서 사는 삶’이다.

26. <영>도 ‘최고 급으로 구원’시키고, <육>도 ‘삶을 즐기면서 사는 자’가 세상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자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쓰면서 보람을 누리고 사는 자다.

27. 하나님은 “<세상에서 누리며 사는 삶>은 허락했어도, ‘영을 망치면서 누리는 것’은 죄다.” 말씀하셨다.

28.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다.<전능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기>다.<육>도 누리고, <영>도 누리기다.

29.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세상 100년>은 ‘일순간, 1초’와 같다. <100년>을 누린다고 해도 누가 그리 누리겠느냐. <누리는 기간>은 불과 ‘한때’다. 물고기가 낚싯줄에 걸린 미끼를 물고 좋아서 흥분되어 흔들고 느끼다 보면, 어느새 판 세상에 와 있다. <인생>도 그러하다.

30.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도 ‘천층만층’으로 존재하듯, <신앙 세계>도 ‘천층만층’이다.

31. <인간의 뇌>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뇌신경’이 형성된다. 한번 그릇되게 형성되면, 일생 동안 바꾸기 어렵다. <자기 육신의 형상, 얼굴>이 생긴 그대로 살아가듯, 거의 그대로 살아간다.

32. <자기 생각>을 잘하거나 잘못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33. <하루>를 두고도 잘못 생각하고 살면 망한다. 실패한다. 힘들게 산다.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제대로 해야 제대로 잘된다.

2. 천천히 써도 다 제시간에 쓴다. 오히려 10배나 더 빠르다.

3. 후대에는 ‘원본’도 보고 평가하니, 그로 인해 인식이 좌우된다.

4. 시간마다 ‘생각’을 제대로 하고, 하나하나 정자로 글씨를 쓰듯 정성스럽게 행하여라.

5. 제대로 하면, 걸어가면서도 최고로 빨리한다. <축지하는 자>는 걸어가도 최고로 빨리 가지 않느냐.

6. 예쁘게 행해야 ‘예쁜 자’를 만난다.

7. <생각과 행실>을 예쁘고 선하게 해야 ‘가는 길’이 평탄하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 천하에 그 누구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

8. <운전>도 못하면서 달리면 누가 타겠느냐. <타고 있던 자들>이 다 내리고 혼자 달리다가 차가 전복되어 모두 쳐다보게 한다.

9. 매일 온전히 행해야 내일과 미래에 ‘온전한 환경’이 온다.
10. 빨리하면 ‘기회’가 빨리 왔다 가니, 잡기 힘들다.
11. <제대로 하는 것>이 ‘빨리하는 것’이다.
12. <먼 길>은 ‘유유히 걷는 것’이다.
13. 급히 해서 끝내고 가면, ‘급하게 한 것을 정리하는 데’ 한 세월이 가지 않느냐.
14. 뇌로 받아서 만들어야 내놓는다.
15. <기계>도 제작에 들어가면, 완전히 만들어야 제품이 나온다. 하나하나 박스에 넣어야 된다.
16. <육계>에서 빨리하니, <꿈>도 빠르게 돌아간다. 그러니 꿈을 꿔어도 무슨 꿈인지 모른다.
17. <꿈>은 ‘거울’이다. <생시>를 비춰서 ‘영적’으로 보인다.
18. <육계냐, 영계냐>는 ‘생각’에서 좌우된다. 곧 <육적 생각이나, 영적 생각>이냐다.
19. <생각>이라는 ‘역’에서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0. <생각>이라는 ‘영의 문’과 ‘육의 문’이 있다. <생각>이 ‘육’쪽으로 가면, ‘육 주관’으로 간다.
21. <영의 세계>에 가려고 그토록 해도 못 들어가는 이유는 생각이 ‘육’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22. <글씨를 못 쓰는 것>은 ‘육계 쪽’이고, <글씨를 잘 쓰는 것>은 ‘영계 쪽’이다. 늘 <영계 쪽>으로 생각하듯 해라.
23. 아무리 ‘삼위의 계시’라도 못 알아보게 기록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24. <성경>도 못 풀면, 소용없는 책이다. <성경을 못 푼 시대>는 ‘새 역사’를 못 폈다. <성경을 푼 데>서 ‘새 역사’를 폈다.
25. <개인의 삶>도 ‘자기 인생’을 풀어야 제대로 펴 간다.
26. <못 푼 자>는 아직도 ‘발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니라.
27. <성경>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주>도 제대로 알고 풀어야 ‘자기 인생’도, ‘시대 역사’도 영과 육으로 제대로 펴 나간다.
28. <자기 모습>을 100% 고쳐야, ‘자기가 하는 일’도 100% 제대로 하게 된다.
29. <자기>는 ‘제품을 만드는 기계’와 같다.
30. <성능이 좋고 온전한 기계>가 ‘온전한 제품’을 생산한다.
31. <생명>도 ‘누가 가르치고,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그 차원이 표가 나게 다르다.

32. 정신 나가면, 정신 나간 짓을 해도 ‘정상에서 벗어난 지’를 모른다. 정상으로 돌아와야 알고, 정상인 자만 안다.
33. <확인>은 ‘온전케 하는 것’이니라.
34. <그릇된 습관>을 안 고치면, 인생 사나 마나 뻘하다. 그 일을 하나 마나 뻘하다.
35. <그릇된 습관을 안 고치는 자>는 ‘고장 난 차나 기계’와 같다. <고장 난 기계>에 전기 코드를 꽂으나 마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36. <온전하지 못한 자>는 10년을 하나, 100년을 하나 보나 마나 똑같다. 뭘 보고 기대하느냐.
37. <토끼>는 보나 마나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토끼 짓’을 한다. 뭘 보느냐. 뻘하다.
38. <이단들, 향락을 즐기는 자들, 각종 부정부패들, TV 연속극이나 썩은 문화들>도 모두 30년 전, 50년 전이나 똑같다. <이성 사랑>도, <놀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도 뻘하다.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먹고 마시며 기뻐한다.
39. <천국 길>은 고생돼도 ‘생명길’이다. <기쁨과 사랑과 흥분의 세계>가 영원히 지속된다.

<2018년 2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물>에 가면 안 가 봐도 뻘한 ‘물놀이’고, <산>에 가면 안 가 봐도 뻘한 ‘산놀이, 등산’이다. 뻘하다. <시장>에 가면 시장 구경하고, 먹거리를 사 먹는다. 뻘하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먹고 마시며, 여행 다니고, 취하고, 성적으로 노는 것 등 모두 뻘하게 끝났다. 끝나고도 별 남는 것도 없이 뻘하다.
2. <생각>으로 순간 ‘뻘한 길’을 둘러보고 다니고 끝낸다.
3.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 ‘육이 생각하고 행하는 세계’같이 뻘하지 않다. 상상도 못 하는 세계다. <육>이 평생 생각해도, 육의 생각으로는 ‘수십 억조 분의 일’만도 생각을 못 한다. 그러니 세상에서 <영의 세계>에 ‘핵’을 두고 살면서, ‘육의 것’으로 그 핵을 보호하듯 하는 것이다. <거죽>으로 ‘곡식의 알맹이’를 보호하다가 때가 되면 거죽을 벗고 알맹이만 남듯, 때가 되면 ‘육신의 거죽’을 벗고 ‘영’이 천국에 가게 된다. 모두 이같이 <영의 세계>에 ‘핵’을 두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최고의 인생, 최고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4. 저마다 ‘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한다. 영원한 세계가 싫어서 안 하고, 육을 위해 사느라 안 한다.
5. <선택>은 ‘자기 자유’다. 그런데 ‘앞날’을 모르고 선택한다. 고로 알려 준다. 선생은 이미 ‘영원한 것’을 알고 선택하여 가르쳐 왔다. <내 영>은 ‘황금성 천국’에서 살고 있다. 나와 같이 하라고 ‘하나님의 시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준다.
6. <민족>도 그 지도자가 미련하여 생각을 잘못하면, 전쟁이나 준비한다. 그 영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영원히 끓는 솥물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세계로 간다.
7. <민족 축소, 개인 세계>이고, <개인 확대, 민족 세계>이다.
8.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불법을 행하고, 불법 무기를 소지하는 민족은 뻘하다. 하나님은 ‘악 쪽’을 편들지 않으신다. <악 편>을 멸하시려고 갖은 계획과 구상으로 그들을 조여 들어가신다.
9. TV 화면에 나오면 모두 자기 행위대로, 민족의 행위대로 받으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직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나 같다.

10. <자기 행위>가 ‘자기 갈 길’을 만들어 간다.

11.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면서 ‘육’도 ‘영’도 그 형체를 변화시킨다.

12. <세상에서 큰소리쳤던 자들>이 저 세상에 가서는 수만 명의 영들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큰소리를 치는 자가 없었다. 이는 자기가 있는 곳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임을 알기 때문이고, 거기서 큰소리를 치면 ‘그중에서도 최고 고통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자기를 따르게 한 자도 있었다. 그에게 물어보기를 “네가 하나님이나?” 하니, “내가 왜 여기 온지 모르겠다.” 했다. 고로 “너를 믿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로 온다. 네가 최고라고 믿고 따른다. 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 “이제는 ‘영’으로도 세상에 못 간다.” 했다. 세상에서 정말 생각을 잘하고, 온전히 삼위와 주를 믿고 따르며 ‘영 구원’을 받아야 된다.

13. <육 구원>을 받아야 ‘영 구원’을 받으니, ‘육 구원’을 받았나 보아라.

14. <육>이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삼위가 보낸 메시아를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가 ‘육 구원’을 받은 자다.

15. <온전하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매일 ‘확인’이다.

16. 매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라. 제대로 했으면, 그것은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제대로 된 것이다.

17. 영성하게 살고 ‘영계’에 가 봤자 그 영은 뻔하다.

18. 제대로 해 놓고 ‘영계’에 가면, 그 영을 안 봐도 뻔하다. 잘돼 있다.

19. 불리해도, ‘기회’가 왔을 때 하여라.

20. 때 지나면, 돈이 있어도 못 산다. 그 돈은 ‘생활’에서 쓰고 끝난다.

21. <기회>가 왔을 때 사고, 몸부림으로 해결해라. 그러면 100가지가 형통한다. 이것이 지혜다. 온전한 판단이다.

22. 교회마다 ‘몸부림의 걸작들’이다. 기회가 왔을 때 안 하면, 하늘을 모시고도 일생 동안 ‘판잣집, 전셋집’에만 살다가 억울하게 죽는다. 이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집>이 있으니, 축복을 받고 시대를 잡아 가면서 멋있게 사는 것이다. 집이 있으니 남들도 부러워하고, 깔보지도 않는다. 자기도 힘이 나고, 기뻐 행한다.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휴거>는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사랑’으로 된다.

2. <휴거된 영>이라도 ‘300선’정도의 휴거 상태에서 육신이 제대로 사랑을 안 지키고, 신앙이 식고, 육신의 행위가 이성이나 세상 사랑으로 기울면, 그 행위에 따라 ‘영’이 영향을 받고 온도계의 수은 눈금이 떨어지듯 ‘300선’이하로 계속 떨어진다. 그러다가 <영>이 지상에 내려오게 된다. 이는 마치 ‘밥을 안 먹고 한 달, 두 달 금식하는 자’와 같다. 고로 점점 쇠잔해지다가 쓰러지는 것이다.

3. <휴거된 자>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점점 약해지다가 휴거를 상실하게 된다. <육신의 행위>대로 ‘영’이 그같이 된다.

4. <자기 육신>을 보아라. <육적 신앙>을 하면, ‘육’만 구원된다. 육신이 살 동안 ‘육신에게 해당되는 구원’과 ‘영에게 해당되는 구원’을 시켜야 된다. 완전하게 ‘휴거’도 시키고, 휴거됐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5. <불완전한 신앙>은 ‘병든 육과 영’같다. 완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온전한 천국 황금성>에는 ‘온전한 영’이 간다.

6. 지상에 사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흑암으로 간다. 지옥 직전까지 가도 모른다. <지옥>이나 <흑암>으로 가는 길은 ‘일반 터널’같은 길이니, 많은 자들이 그냥 같이 길을 가는 줄 안다. 지옥에 들어가면 고통스러우니, 그제야 알고 소리 지른다. 그때는 소리 지르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가 왜 지옥에 왔는지 모르고 발버둥 친다.

7. 왜 지옥에 갔을까?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 ‘영’이 제대로 구원이 안 된 것이다. 둘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다. <자기 행위로 인한 죄>가 지옥에 갈 만큼 됐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과 주를 섬기면서 세상도 즐기며 살아서다. 끝까지 두 가지를 하면, 지옥으로 간다. <천국>은 ‘두 다리’를 가지고 가야 된다. <한 다리>만 가지고 못 간다. <한 다리>는 ‘세상’에 두고, <한 다리>는 ‘천국’에 두는 것은 없다. 해결해야, ‘천국인’으로 판명 난다.

8. <세상>에서도 ‘두 가지 길’은 못 간다. <두 가지 길을 가려는 자>는 두 갈림길 앞에서 머물러 있다.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다. 그런 자들은 대개 흑암으로 간다.

9. <두 길을 가는 섭리인들>도 그러하다. 계속 거짓말을 하며 세상 친구들과 술 먹고, 주일날 놀러 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해를 받기도 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하지 말라고 했어도 세상을 즐기며 살아서다.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과 주는 다 보고 아신다. <하나님의 주관권>을 떠나니,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10. <구원받을 자>는 때려서라도 행하게 하신다. 매를 맞고서라도 돌이켜 사망에 영원히 안 가야 된다.

11. 심판받고 죽으면, ‘육’으로는 다시 기회가 없다.

12.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 <정결하게 하는 때>다. 모두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13. 하나님은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으니, 다윗이 돕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사울 왕은 행한 대로 짓값을 받고 스스로 죽었다.

14. 다치고 죽은 다음에는 생각도 안 난다. 다치기 전에, 죽기 전에 돌이켜라.

15. 알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가 더 크다.

16. <죄>를 짓고서 ‘회개’가 밀리면, 그것이 ‘사고의 시한폭탄, 피해의 시한폭탄’이 돼서 터지게 된다.

<2018년 2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같이 어렵다. <약을 먹고 병이 낫는 것>도 참으로 어렵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병이 안 나게 사전에 몸부림치며 관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제일 쉽다.

2. 한번 병이 나면 1년, 2년 기도해도 어렵다. 고로 사전에 병이 안 나게 관리해라.

3.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다고 “야속하다.” 하며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다해서 병에 안 걸리도록 관리해라. 가장 철저한 방법이다. 그러면 병에 안 걸리니, 이상적이다.

4.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가라.

5.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는 ‘기도 시대’다.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되면 ‘기도 시대’는 지나간다. 이때는 하

나눔이 ‘의학’을 통해 역사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르다.

6. <병원>에 가면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금방 해결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몸부림치고 고생하지 말아라. 그 고생을 하느니 병원에 가서 ‘약’으로, ‘수술’로 치료해라. 그러면 낫는 자가 훨씬 더 많다.

7. <기도>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약도 없었을 때 ‘기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8. <차가 없었을 때>는 기적 같은 ‘축지의 역사’다.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가면 쉽다.

9. 매일 운동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나아서 성령님께 말하니, “<음식>을 지혜롭게 먹으면 낫는데, 왜 쉬운 ‘순리의 치료’를 안 하느냐.” 하셨다. 고로 음식을 짜게 안 먹으니 혈압도 100% 정상이었다. 짜게 안 먹으니 ‘암’에도 안 걸렸다. 그리고 매일 운동하니, 몸도 튼튼하다.

10. 매일 아픈 자들을 위해 ‘신유의 기도’도 해 주고, 운동하도록 기도해 주고, 음식도 ‘건강’으로 대하며 먹으라고 기도해 준다.

11. <치료>는 ‘네 가지’로 해라. <의술 치료>, <운동 치료>, <음식 치료>, <기도 치료>다.

12. <위>에 이상이 있으면, 한 달에서 두 달은 음식을 짜게 먹지 말기다. 그리고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하기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행하기다.

13. 모르니, ‘기도’만 한다. 잠이 올 때는 자면 간단한데, 잠이 안 오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게 더 어렵지 않느냐. 잘 때는 자고, 정신이 생생할 때 기도하면 쉽다.

14. <사탄, 마귀>도 평소에 ‘행실’을 온전히 하면 쫓아낼 수 있는데, 평소에 온전히 행하지 않으니 사탄, 마귀가 와도 졸고 있다. <행실>을 온전히 하면 사탄, 마귀가 와도 즉시 발로 차서 없앤다.

15. 죄를 짓고 힘들게 기도하지 말고, 죄를 짓는 그 시간에 ‘의’를 행하며 ‘의의 시간’으로 써라. 그러면 ‘의’를 행했으니, 죄도 안 짓고 회개 기도도 안 해도 된다.

16.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게을러 안 하면서, 매일 부지런하게 해 달라고 힘들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시간에 ‘의’를 행하며 뛰어라.” 하셨다. 성령님은 힘들어도 ‘매일 뛰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17. <미련한 자>는 평소에 할 일을 안 하고서, 자기가 할 일을 못 했다고 죄송해하며 힘들게 기도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 시간에 열심히 뛰고 ‘의의 공적’을 세워서 편히 먹고 자면서 삼위와 동행한다.

18. 지혜롭게 하면, 쉽다. 아쉬운 소리를 안 하게 된다.

19. 죄를 지었다고 아쉬운 소리를 하며 한 달 내내 어떻게 회개 편지를 쓸까 생각하고, 긴 회개 편지를 쓴다. 얼마나 힘드냐. 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그 시간에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며 자기 할 일을 하고 “열심히 했어요.” 하고 1분 쓰면 칭찬받는다.

20. 모두 ‘자기의 황금 시간’을 죄를 짓는 데 쓰면서 힘들게 ‘죄 속에서 헤매는 고생’을 하지 말아라.

21. <건강>도 그러하다. 평소에 관심 없이 살다가 건강을 상실하고 나서 매일 힘들게 고생하며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 미리 건강관리 하기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다. 그러면 30배는 더 쉽다.

22. 모두 ‘기도로 병을 고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겪어 봐서 알 것이다. <기도>로는 100배 힘들다. 100% 해도, 장담을 못 한다. 그러나 <지혜의 방법>으로 하면 쉽다. 그 길은 ‘십 분의 일’밖에 힘이 안 든다.

23. 병을 고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두 100% 믿고 하지, 누가 10%만 믿고 하겠느냐. 100% 믿고 해도, 열 명 중에 한 명 낫는 것도 보장이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자기가 노력하면,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해결된다. 고로 성령님도 “힘든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 말씀하셨다.

24. 미리 행해서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데, 행하지 않고 힘들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 많다. <절벽 길>을 가면서 힘들게 기도한다. <쉬운 길>로 가는 자는 힘들게 기도하지 않아도 90% 이상 해결된다. 고로 ‘쉬운 길’로 가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다.

25. <삼위와의 사랑>도 평소에 하면, 기도하거나 대화할 때 힘들지 않다. 고로 그에게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바로 “기도해라.” 말씀하신다. 그러나 <평소에 삼위와 멀리 지내던 자>가 기도해서 대화하려면, 밤새워 해도 어렵다. 고로 성령님은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야 밤을 새워 기도하느냐? 나 바빠.” 하신다. 그리고 멀리서 보시고는 안타까워서 “알았다. 낮에도 절대 졸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하고 한마디 하시고 웃으면서 떠나가신다. <평소에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자>는 밤새워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과 금방 통하고 대화하고, 일찍 잔다.

<2018년 2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온종일 ‘토끼가 노는 것’을 봐 봤자, 보나 마나다. 고로 구경을 안 간다. <토끼 만 마리가 노는 것>을 봐도 보나 마나다. 역시 ‘토끼가 노는 것’은 뻔하다. <생각>으로만 봐도 뻔하니, 아예 안 본다. 특별한 것이 없다. 토끼가 변해서 코끼리나 치타가 되겠느냐.

2. <사람>도 ‘토끼 같은 사람’은 특별히 볼거리가 없다.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역시 ‘토끼 인생들’이다. 종일 봐도 ‘토끼의 삶’이다. 한 단계 높여서 ‘사슴’이 되든지, 또 한 단계 높여서 ‘치타’가 되든지, ‘호랑이’가 되든지 하면, 다르다. 모두 차원을 안 높이면, 하나님이 보셔도 희망이 없어서 “보나 마나다.” 하신다.

3. 누가 관광지에 ‘토끼’를 보러 가자고 하면 가겠느냐. <뇌>에 넣고 생각으로 ‘토끼 영상’을 돌려 보고 말 것이다.

4. <수준과 차원이 낮은 삶>은 보나 마나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도, 노는 것도 보나 마나 뻔하다. 늘 같은 것, 늘 하던 식이다. <영원한 것>이 없다. <육에 속한 일들>이다. 이미 보고 겪고 아니, <뇌>에 넣고 생각으로 잠깐 돌려 보고 만다.

5. <영원한 것>이라야 ‘볼 것’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 최고 창조 목적의 역사>라야 정말 ‘볼거리’가 있다. 이는 ‘영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6. TV를 봐도 늘 그 토끼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가 반복된다. 그런데 거기에 턱을 고이고 빠져서 본다. <수준>이 낮아서다. 그러니 제 할 일을 못 하고 토끼같이 살다 간다. 그들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황금성 천국 길’을 가게 된다. 나이가 어려도 ‘수준이 높은 자’는 거기에 안 빠진다.

7.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기쁘고, 흥분되어 놀라고, 뇌에 불이 나고, 심장이 북을 치듯 한다.

8. 선생은 50년 전, TV를 귀히 여기고 좋아하던 때에도 TV에 안 빠졌다. 그런 수준이었으면, 이 길을 못 왔다.

9. <메시아를 모르고, 안 믿는 자들>은 ‘무지의 정신 이상자들’이다.

10.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 자들>도 다 제정신이 아닌 ‘무지한 자들’이다.

11. 하나님이 보실 때 메시아도 아닌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도 다 ‘무지의 정신 이상자들’이다.

12.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수천조 분의 일’도 못한 인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다.” 한다.

백만 배도 더 고생을 하면서 인간 우상을 섬긴다. 모두 제정신이 아닌 무지한 자들이다.

13.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받는다. <우상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산다. 그러니 수천조만큼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이들을 ‘모르는 정신 이상 자들’로 보신다.

14. <신경질이나 분노, 혈기를 내고, 과격한 말이나 행위를 하는 자들>도 ‘정신’과 ‘뇌신경’이 정상이 아니다.

15. <낙심, 자포자기, 불안, 초조, 공포, 심란함>도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면, 편안하다.

16.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신>은 좋게 잘 고쳐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잘 변하기도 하니, <자기 정신과 생각>을 굳건히 하고,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만들어라.” 하셨다.

17. <생각>은 ‘뇌신경’이 느끼는 대로 이리저리 변한다. 변화무쌍하다.

18. <뇌 흥분, 뇌 가열> 상태를 잘 써야 된다. 가령 <뇌>를 너무 뜨겁게 하면 못 견디고 마치 사우나에 오래 있으면 뛰어나가듯 한다. <뇌>가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19. <정신 이상자들>도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상이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정상이라 해도, 하루만 안 만나면 이 말 저 말을 하고 다닌다. 또 안색이 ‘구름 낀 날’과 같다. <제정신이 아닌 자들>은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풀린다. 그러면 뇌신경이 바로 예민해져서 반응하고, 잡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영적으로 기도하여 신령함으로 사탄, 마귀를 다스려야 된다. 그까짓 사탄에게 당하느냐. <사탄>은 사람의 백 분의 일도 안 된다.

20. <사람>은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다. <사탄>은 육도 없고 ‘악 덩이, 거짓 덩이’만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죄를 회개하여 하늘 앞에 조건을 세우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즉시 사탄이 사라진다. <천사>에게도 명하면, 천사가 바로 ‘검’으로 사탄의 목을 쳐 버린다. 귀신도 늘 오니, 그때마다 “귀신아!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선포한다.” 하면 말하는 대로 말이 ‘검’이 되어 날아가서 귀신에게 쫓힌다. 왜 그것도 못하느냐. <입>을 두고도 못 하여 ‘사탄,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술 먹고 꺼려하느냐? 이성 죄를 짓고 휴거 선에서 떨어져서 7년, 8년, 10년씩 조건을 세운다. <입>으로 명하면 ‘10초’면 되는데 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느냐. 그러니 ‘정신 이상자들’이다.

21. 목사들이 주일날 교회에 안 나간다.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런 자들은 앞으로 보고가 오면 교단에서 확인하고 목사 신급을 뺏는다. 기타 임무를 맡거나 강도사, 전도사 사명을 받고도 특별히 행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확인하고 뺏는다. 가계에 ‘간판’만 있고 장사를 안 하면, 간판을 내려야 된다. <인법>이다. 이같이 ‘천법’도 그러하다. 주의 입에서 나왔으니, 말씀대로 안 하면 ‘화’가 된다.

22.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나가 주일을 지키는데, 방에서 배 깔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 보는 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보고 편지가 온다. <삼위>를 거스르면, 황금성에서 살지 못한다. 뜨끔한 꼴을 당하고 울면서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다.

23. <목사>는 15명 이상, <강도사>는 10명 이상, <전도사>는 5명 이상 전도해라. 교단 행정에 전도 공적도 ‘A급’, ‘B급’으로 올려 놓아라.

24. 어떤 자는 10명, 15명씩 전도했다. 고로 전도하라고 ‘전도사 사명’을 주었다. 선생은 ‘교회 반사’ 때 수백 명씩 전도했다. 집사 때 만 명씩 전도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모두 듣고 행하여라.

25.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서 행한 직책들>은 ‘빛’이 안 난다.

26. <건강>도 미리 관리하고 조심하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 안 하니, 하나님도 주도 안쓰러워하신다.

27. <차를 탈 때>도 한 차에 탔으면 같은 운명이니 제발 졸지 말고 운전하는 자를 지키라고 했어도, 졸다가 사고를 낸다. 밤잠을 못 자 가면서 기도해도 안 지키니, 차에 탄 자들의 책임이다.

28. <지옥>도 졸다 간다. 그 뜨거운 쑥물에 영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고 한다. 그때 입으로 쑥물이 쑥 들어가니, 배에서 펄펄 끓는다.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해서다.

29. <시동>이 걸리면, 리듬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계속해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꺼트리지 말고 계속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과 같이 행해라. 차원을 높여라.

30. 아무것도 아닌 미신을 섬기면서 하루에 얼마나 절을 하는지 아느냐. 하루에 1000번, 3000번씩 염주를 돌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복을 빈다. 하루에 노래만 100곡, 200곡씩 부르지 말고 '대화'하여라. 노래는 20번 정도 불러도 많이 부르는 것이다. <이야기하기>다. <대화하기>다.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일체 되어 행하여라.

31. 세상에 중독되어 '정신 이상자'가 되지 말아라.

32. 자기에게 '정신 이상, 생각 이상'이 있는지 보아라. 모르면, '정신 이상'이 생긴다.

33. <제 할 일을 못 한 자>도 '정신 이상자'다.

<2018년 2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기본>은 안 뺏겨야 일을 해도 표가 난다.

2. <건강>도 '기본 선(線)'이 있다. <기본 건강>을 유지해야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해도 표가 난다.

3. <신앙>도 '기본 이하'로 내려가면, 열심히 해도 한동안은 '기본'을 채우느라 표가 안 난다. <기본>을 다 채워야 그때서야 표가 난다.

4. <댐의 물>도 '기본 선'까지는 유지돼야 비가 와도 표가 나게 차오른다.

5. <신앙>도 '기본'은 유지해야 일을 해도 표가 난다. 댐에 물이 빠져서 바닥이 드러나듯 하면, 다시 '기본'을 채우는데 오래 걸린다.

6. <장사>를 해도 손해가 안 가고 현상 유지하는 단계가 '기본'이다.

7. <기도>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도 '기본'은 꼭 해야 된다.

8. <운동>도 '기본'은 꼭 해야 체력이 유지된다.

9. <건강관리>도 '기본'은 꼭 해야 된다.

10. <먹는 것>도 '기본'은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고 활동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의 소통>도 '기본'은 유지해야 안 끊어지고, 거기서 열심히 소통을 하면 표가 나게 된다.

12. <청소>도 '기본'은 매일 해야 된다. 안 하면 쓰레기가 쌓여서 존재를 못 하게 된다.

13. <기본>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끝’을 내서 끝내야 된다.
14. <글>을 쓰나 <그림>을 그리나 모두 ‘기본’을 알고 해야 힘이 안 들고 표가 나게 하게 된다.
15. <기본 선>이 ‘유지하는 선’이다. <자기 기본에 있지 않은 자>는 무엇을 하든지 해도 표가 안 난다. <기본>까지는 올라와야 무엇을 해도 한 만큼 표가 난다.
16.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가 ‘기본’이다. 거기에 한 수저만 물을 더 부어도 넘친다.
17. <폭포수도 물탱크에 물이 차 있을 때>가 ‘기본’이다. 기본에서 물을 조금 더 채우면, 폭포수가 내려온다.
18. <기본>을 다 빼면, 채울 때까지 표가 안 나고 힘들다. <기본 신앙>이다.
19. <매일 교통하기, 기도하기, 실천하기> 기본 위에다 뛰고 달리고 날아야 거두고 얻게 된다. <기본>은 ‘현상 유지’다.
20. <기본>을 하되 거기서 벗어나게 행하여라. <기본>에서 벗어나 행해야 힘이 나고, 표가 나고, 기뻐 흥분된다. 변화된다. 빛이 난다. <발에 감춰진 보화>도 발견하고 얻는다.
21. <기본>부터 하면, 표가 난다.
22. <기본>은 ‘지하층 공사’다. <지하층 공사>를 다 하면, 그때부터 눈에 띄게 건물이 올라간다.
23. 열심히 해서 ‘기본’을 벗어나야, 표가 나게 보인다. 얻는다.
24. <평소에 하던 방식>이 ‘기본’이다. 더 좋게 해야 기본에서 벗어난 것이다.
25. <기성 시대>는 ‘기본 시대’, <새 시대>는 ‘올라오는 시대’다.
26. <산을 오를 때>도 집에서 출발해서 산 밑의 입구인 표를 끊는 곳까지 오면, 이는 ‘기본’을 한 것이다.
27. <차를 탈 때까지>가 ‘기본’이다. 차를 타고 가야 표가 나듯이, <기본 위>에 해야 표가 난다.
28. <토목 공사>가 ‘기본’이다. 거기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야 표가 난다.
29. 늘 <기본>만 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본’ 나쁘다. 지루해서 눈을 돌리신다. 삼위께도 주께도 불거리를 드리도록 매일 행하여라.
30. 매일 <기본 신앙>만 하면 희망이 없다. 기본 위에 행하여 ‘자기 영의 형체’를 변화시켜라.
31. <월명동>도 계속 만들고 개발하니 변화되어 그 모양과 형체가 바뀌었다. 그러니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 <교회>도, <개인>도 매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행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무기력한 주관권에서 살게 되어 알아주지도 않는다.
32. 부모는 자기 아기가 매일 크고 성장해야 좋아서 기뻐하며 희망을 이룬다. 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커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매일 기본을 벗어나서 더 행하여라. 그래야 네 희망이 이루어진다.
33. 어떤 자는 신앙을 한 지 3년, 10년, 20년이 됐어도 늘 지하 공사만 하면서 ‘기본 신앙 유지’만 한다. <늦게 온 어

린 자들>도 ‘신앙의 별장, 빌딩’을 지었다. 영의 세계를 보아라. 봐야 알고, 자는 것도, 먹고 노는 것도 등을 지고 행하게 된다.

34. 매일 ‘기본’을 벗어나서 해야 기쁨과 희망으로 살게 된다.

35. <기본>은 ‘걸기’다. 그다음 단계는 ‘속보(速步)’다. 그다음 단계는 ‘뛰기’다. 그다음 단계는 ‘차 타고 가기, 비행기 타고 날기’다. 앞에 여러 단계가 있는데도 걷기만 하고, 급하면 겨우 뛰다. 날아야 된다. <기본>을 겨우 해 놓고 큰소리를 치느냐. 옆에는 건물을 완공해 놓고 장사한다.

36. <정한 때>가 ‘황금 시간’이 되어 매일 앞에 지나간다.

37. <기본>은 ‘은’ 같은 단계다. 그 위에 더 해야 ‘금’ 같은 역사다. 그 위에 더 행해야 ‘다이아몬드’ 같은 역사다.

38. <네 앞에 있는 복>은 네가 기본을 행하고, 그 위에 끝까지 해야 얻는다. 못 하면, 초라하게 인생 끝난다.

39. <성공>은 자기에게 있다. <기본 말씀>도 주고, <완성 말씀>도 주니,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행하여라.

40. <기본>만 도전하고 끝내서 지하실에서 살지 말아라. 다른 자는 산을 다 오르고 내려오는데, 겨우 산 밑에서 표만 꿔고 큰소리를 치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갑시다.” 하니, “이미 산을 다 타고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새벽 3시에 올라갔다가 이제는 사우나 하러 가야 됩니다.” 한다. 날이 다 새고 그제야 오르려고 하느냐. <신앙>도 이러하다. <성공>하려면, ‘속도’다. <먼저 간 자>가 좋은 산머루도 따 먹고, 좋은 목재도 사 오고, 좋은 물건도 사다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2018년 2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새 교회>를 찾는 것도 ‘기본’으로만 찾으면 ‘보통 것’만 찾는다. <기본>을 벗어나서 했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예비한 것을 찾게 된다.

2. 어떤 교회는 전세살이를 하고 있어서 선생이 교회를 찾아보라고 했다. 찾아도 좋은 것이 없어서 ‘없구나. 끝났다.’ 하고 있는데, 교회 주인이 교회가 시끄럽다고 하며 소리를 지른다고 했다. 고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찾았다. 결국 성령이 감동을 주어 찾게 됐다. 그 교회는 교인이 200명인데, 기본으로만 하니 3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찾아다녔다. 그 주위에 세 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모두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며 선생에게 사진을 보내왔다. 그중에는 1000명 이상 들어가는 큰 교회도 있었고, 나머지는 6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와 300명이 들어가는 교회였다. 실상 그 교회의 교인수를 보면 3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적당했다. 재정도 그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의 꿈에도 ‘큰 것’으로 계시해 주셨다. 결국 뭉쳐서 크게 인구름을 만들고 큰 것을 사도록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 <기본>을 벗어나서 행해야 더 이상적이다. 그 후에 왜 그 지역 교회들이 모두 교회를 팔려고 내놓았는지 알아보니, 그 중 두 교회는 자기 교회를 팔고 ‘우리가 사려고 했던 큰 교회’를 사려고 한 것이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고로 <기본>을 벗어나 ‘더 이상적인 것’을 원하도록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찾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것이다. 사라.” 하셨다.

3. <기본>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본 차원’이 아니시다. 아예 ‘완성 차원’이시다. <앞날>을 보고 행하신다.

4. <작품>도 기본을 벗어나야 ‘결작’이 된다. 가령 넷물이 보통으로 흘러 내려가면, ‘기본’이다. 흐르다가 기본을 벗어나 절벽에서 떨어지면, 폭포수가 되니 ‘작품’이 된다.

5. <계곡물>도 순수하게 흘러가면 ‘기본’이다. 바위가 깊이 파이고 좌우로 바위가 바닥처럼 깔려서 그곳 사이로 흐르면, ‘선녀탕 결작’이라고 한다. 이같이 <사람>도 그러하다. <보통>으로 생기면, ‘기본’이다. 남다르게 생겼으면 “미인이 다.” 한다.

6. <미인>도 ‘꾸민 미인’이 있고, ‘타고난 미인’이 있다. <작품>도 ‘만든 작품’이 있고, ‘자연스럽게 타고난 작품’이 있다.
7. <월명동 소나무>도 보통으로 생긴 것은 ‘기본 솔’이다. 사연이 있는 ‘사연 솔’이 있고, ‘타고난 형체를 갖춘 솔’이 있고, ‘손질해서 만든 작품 솔’도 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크기가 큰 작품 솔’도 있다. <바위>도 사연이 있으면, 타고난 형상이나 모양이 없어도 작품이다.
8. <사람>은 태어나면서 ‘기본’은 거의 갖추고 태어난다. 그 이상은 자기가 만들기에 따라 좌우된다.
9.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든 자도 있다.
10. <지형>도 모두 ‘기본’으로 창조되었다. 어떤 곳은 기본을 완전히 벗어나 형체를 이룬 곳도 있다. 고로 ‘대결작, 자연 건물’이 되었다. 그대로 개발하니, ‘거대한 자연성전, 하나님의 궁’이 되었다.
11. <산>도 모두 ‘기본’으로 창조되었다. <명산들>은 바위 절경으로 이루어져서 걸작이 되었다. <자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여서 걸작으로 만들어라.
12. <하나님의 성전들>도 보아라. 일반적인 기본 건물과 무엇을 다르게 지으셨는지 보아라. <위치>가 다르고, <건물의 모양과 형상>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13. <월명동 자연성전>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신경 쓰고 지으신 곳은 다르다.
14. <교회를 살 때>는 건물이 조금 크기만 하다고 해서 “우와! 좋다.” 하고 사면 안 된다.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면서 마치 형상석을 사 오듯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작’을 사야 된다.
15. 하나님은 ‘최첨단 예술의 왕 중의 왕’이다. 삼위의 구상을 알고, 삼위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러면 두고두고 봐도 ‘보화 교회, 보화 환경’이다.
16.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을 귀히 쓰고, ‘휴거의 생명’으로 채워라. 그래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그 교회와 환경을 주신 보람이 있다.
17. <귀하고 멋진 곳>에 ‘누가 사느냐’가 문제다. <귀한 자>가 살면서 써야 ‘귀하고 멋진 최고 걸작’과 맞다.
18. 이 말씀을 쓰는 날, 오늘은 정말 기도만 하고 글은 안 쓰겠다고 혼자 다짐을 했다. 이미 써 놓은 글이 며칠씩 교정해도 산같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고로 지쳐서 못 하겠다고 하고, 이제 글은 새로 안 쓰고 ‘이미 쓴 글들’을 다 교정하고 다시 쓰겠다고 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내 말에 한 마디도 안 하셨다. 그때 ‘오늘 것은 오늘 못 쓰면, 앞으로도 못 쓴다. 써 놓은 것은 후에 교정하면 된다.’ 함이 깨달아지고, ‘기본’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졌다. 고로 ‘잠언 하나만 써야지.’ 하고 한 잠언을 쓰니 연속해서 ‘기본에 대한 말씀’이 왔다.
19.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기본 대화는 해야 된다.” 하고 계속 말씀하신다.
20. <기본 대화>를 안 하면, 사이가 멀어지고 오해가 생긴다. <기본 기도, 기본 대화, 기본 말씀, 기본 찬양, 기본 인사, 기본 옷 입기> 등이다.
21. <목사나 장로, 사명자들>은 기본으로 교회에 가고, 주일을 지키기다. 안 하면, 그 직책이 아니다. 허수아비이며, 간판만 단 자다.
22. 전능하신 삼위와 주가 와 계시는데 ‘기본’이 안 되면, 말도 안 하시고 행하신다. 안 되고 나서 그제야 깨닫게 된다.

<자기 권위>도 ‘기본’은 지키고, <기본>으로 ‘자기 할 일’은 하여라.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신호등 지키기, 차선 지키기>는 ‘기본’이다. <기본>이 안 되면, 사고 난다. <신앙>도 그러하니라.
2. <평화의 기본>을 안 지키고 전쟁만 일삼는 북한은 자기 행위로 인해 스스로 절벽에서 떨어진다. 모두 자기 행위대로 대한다.
3. <기본>은 ‘자세’에서 출발한다. <운동>도 ‘기본’만 하면, 굳은 몸을 푸는 정도다. 축구나 각종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풀었으면, ‘경기’를 해야 된다.
4. <기본 신앙만 하는 자>는 역사를 못 이룬다.
5. <보통 사람>은 다 ‘기본 실천’만 한다. 선생의 모(母)교회, 석막교회 사람들도 모두 ‘기본 신앙’은 했다. <산(山)기도>도 ‘기본’으로 가끔 하고, 신학도 하고, 묵회를 하기도 했다. 다 기본 신앙들이다. <기본>만 하고 끝났다. 선생만 기본을 벗어나서 끝없이 했다. <산기도>도 가끔 하지 않고, 산속에서 산을 집으로 삼고 살면서 기도했다. 노방 전도도 인사치레로 가끔 하듯 하지 않고 매일 노방 전도하며 살았다. 지금도 차원과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한다.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단상을 지킨다. 때로는 한 명을 놓고 하기도 한다.
6. <바다의 표면 높이>가 ‘해발’을 측정하는 기본이다. 그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답답하다. 높이 오를수록 육지에서 편하게 집을 짓고 산다. <기본>을 벗어날수록 더 편하다.
7. <기본>으로 대하면 ‘보통 사람’이고, 가까이 대하면 ‘자녀’이고, 더 가까이 대하면 ‘신부들’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구약>에서 ‘기본’으로 대해 오시다가, <신약>에서 ‘자녀급’으로 대하시고, 그 위에 <성약>에서 ‘최고 신부급’으로 대하신다.
8. <기본>을 행하면, 행한 대로 기본만큼 받는다. 기본을 벗어나 차원을 높여야 완전하다.
9. <기본>도 못 하니, 모두 문제가 생긴다.
10. <기본>에 대해 깨닫고, 더 성공하기 위해 ‘기본 위’에 다양하게 행하여라.
11. 매일 기본만 행하면, 자기도 삶이 지겹다.
12. <기본>을 했으면, 그 위부터는 주관권이 바뀌기 때문에 힘들게 해야 된다.
13. <기본>을 넘어 행하면, ‘기본’이 좋다. 영계로 들어간다.
14. <천연 굴>도 ‘기본’까지는 보통이고, 지나서 더 들어가면 신비하고 아름답다. <관광지>도 그러하다.
15. <영의 세계>도 ‘기본 지역’까지는 보통이다. <혼의 세계>가 ‘기본’이다. <육의 세계>가 ‘기본’이다. <생각을 집중해서 가는 세계>부터 ‘이상세계’다.
16. <월명동 자연성전>도 초장(草場)에서 뱀이나 해충을 잡는 것이 ‘기본’이다. <그 후에 목적을 이행하는 것>이 ‘기본 위의 이상세계’다.
17.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은 ‘기본 차원’이다. 그 후에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사명을 주어 하늘의 일을 하게 하고, 섭리사에 흑자를 남기게 하는 것이 ‘완성 단계’다.

18. <결작>을 만들거나 찾을 때마다 ‘기본 선’을 넘어 차원 높이 해서 얻었다.
19. 하나님이 지구 세상 인간들에게 주시는 ‘더 이상 없는 최고 휴거’를 시켜 주셨는데도, ‘기본 신앙’을 안 하니 점점 차원이 낮아지고 결국 휴거를 상실하게 된다.
20. 비싼 차만 타도 세금이 높다. 세금을 안 내면, 결국 운행을 중지시킨다. 다시 세금을 내면, 또 사용한다.
21. <몸부림의 결작>을 만들고, 찾고, 얻어라.
22. 지구 일곱 바퀴 돌면서 곳곳을 누비다 얻은 것들인데 소홀히 여기면 자격이 없어서 뺏기고, 다시는 못 얻는다. <휴거>도 그러하다. 6000년 하나님의 구원역사 위에 이룬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상실한다. <귀한 것>은 그만큼 관리하여 ‘기본 이상’으로 해야 된다.
23. 저마다 <자기 관리>도 ‘기본 이상’으로 하여라. 그래야 표적이 표 나게 일어난다.
24.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기본’이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기본’이다.
26. <기본>을 무시하고 벗어나 불법으로 행하며 우상이나 잡신들을 섬기면, 계속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무저갱, 음부, 흑암 세계’로 간다. 영계에서 보면, 모두 땅속 깊은 지옥 세계들이다.
27. <무저갱>은 끝도 없이 내려간다. 한번은 꿈에서 보니, ‘좁은 우물’ 같았다. 어떤 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끝없이 떨어졌다. 세상에서 뻘뻘하며 그리도 하나님과 주를 안 믿더니 무저갱으로 떨어진 것이다. <육신>만 위해서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할 자를 외면하고 냉혹하게 대하더니 그 행위대로 사망길로 간 것이다. <기본>도 안 되게 하더니 그리되었다.
28.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29. 세상에서 큰소리치던 자들도 영계에 가면 서로 다 본다. 세상에서 별 영광과 권세, 명예를 혼자 다 누렸어도 ‘자기 영’을 구원하지 못한 자들은 처참하게 당하고 산다.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에서는 관심도 없이 보던 자들의 영이 구원받고 영광을 누리며 사니, 이들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기절한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하며 삼위와 구원자에게 세세토록 영광과 사랑을 드린다.
30. <구원과 휴거>가 얼마나 큰지 세상에서는 거의 모른다. <영>이 가서 봐야 안다.
31. <제철소>에 가서 보기 전에는 쇳덩이가 녹아내리는 것을 모른다. <화산>도 폭발하기 전에는 평화롭다. 어느 정도 폭발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화산이 폭발해서 뜨거운 불덩이가 몸에 닿아 봐야 안다. 흙과 돌이 녹으면서 용암이 홍수같이 밀려 내려오고 거기에 발이 빠져 봐야 그제야 안다. 구경만 해도 모른다. 몸의 일부가 빠져 봐야 안다. 이것이 ‘인간의 차원’이다.
32. <주>가 재촉할 때 하여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급하다고 뛰시는데 걷고 있느냐. 잠을 자고 있느냐.
33. <휴거 때>도 그리 재촉하고 독촉해도 걸어가고 잠을 자다가 당하더니, 또 그리할 것이냐? 또 그리하면, 희망이 없다. 남은 기간 뛰고 날아라.
34. 항상 <휴거 때 성자가 하신 말씀>을 생각해라. 그때 성자도 주도 신부들을 짊어지고 ‘휴거 결혼식장’에 겨우 갔다. 거기서 성자도 주도 숨 못 쉴 것을 몰아쉬었다. 또 이같이 하면, 그런 자는 그냥 두고 하객들 중에서 뽑아서 신부로

삼고 간다. 이미 떠났는데 늦게 와서 탄식하며, “이건 꿈이지.” 한다. 무슨 꿈이냐? ‘생시’다. 자기가 못 하고서 ‘자기 주관’으로 위로하는 것이다. 지금은 ‘생시의 휴거 기간’이다.

35. 신랑이 없는데 무슨 드레스만 입고 다니느냐. 벗어라. 개가 물고 늘어진다.

36. <주와 같이 귀히 행한 자들>아, 같이 먹고 마시며 잔치하자. <새 역사>는 너희 것이니라.

37. <황금성 천국>은 ‘귀히 여기고 산 자들의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거기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자. 또 줄 것이 많고도 많다. 너를 위해 예비된 곳에서 먹고 즐기고 사랑만 하며 구경 다니자. 세상에서 ‘영’을 위해 살면서 못 했으니 백 배, 천 배, 만 배, 억만 배도 더 해 준다. 주가 삼위와 그리 외쳤어도 안 듣던 자들이 어찌 되나 보여 주마. 세상에서 주가 말한 대로다.

<2018년 2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환경>과 <몸>은 ‘하나’다.

2. <환경>은 ‘제2의 몸’이다.

3. <집>과 <몸>이다.

4. <육>과 <마음>이다.

5. <마음>과 <혼>이다.

6. <혼>과 <영>이다.

7. <육>과 <혼>은 ‘일체’다.<육>을 못 잡으면, <영>은 마치 ‘땅을 벗어난 나무’와 같다.

8. <육>이 없으면 ‘영’은 육계에 존재를 못 하고, 영 자체로밖에 활동을 못 한다.

9. 가령 자기 집이 있어야 그곳에 거하는데, 자기 집이 없으면 존재를 못 하고 떠나가야 된다. 집이 100개가 있어도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없으면 거할 곳이 없어서 떠나가야 되듯이, <영>도 ‘육’이 없으면 떠나간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이시다. <육신>은 ‘집’과 같다.자기를 믿고 사랑하면 자기 애인이 되니, ‘애인 집’도 ‘자기 집’이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 집에 거한다. 삼위를 믿고 사랑하면,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그 육이 삼위가 거할 집이 된다.

11. 예수님도 “내가 거할 곳이 없다.” 하고 기도하셨다. 사람들이 <주>를 알고 믿고 사랑하면, 주가 거할 곳이 된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 시대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거할 집’이요, ‘궁’이 된다. 만일 그런 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마치 자기 집이 없으면 거리를 지나다니기만 하듯 하신다.

12. 하나님은 곳곳마다 ‘거할 집’을 만드신다. 빈 건물만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거할 곳>은 오직 ‘사람’이다. 하나님은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절대적인 자’에게 마음 놓고 “내 집이다. 내 신부다.” 하신다. 고로 항상 그와 같이 사신다.

13. 하나님은 신부 시대 때 ‘휴거’로 하나님의 뜻을 100% 펴신다.

14. 저마다 목적인 것을 이루었으면, 뜻을 편 것이다.

15. <신부 시대>는 하나님이 100% 하신다. 결혼을 안 하고 형제들과 살 때는 100% 사랑을 펼 수가 없다. 그러다 형제를 떠나 사랑하는 자를 만나 결혼하면, 그때 100% 사랑을 편다. 이같이 하나님은 ‘신부 시대’가 되면, 땅에서 사랑의 목적을 100% 펴신다. 이미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펴 나가고 계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획하신 역사>를 펴셨다.

16. 누구든지 과일나무를 심고 곡식농사를 지었으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따고 곡식을 거두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가을과 같은 ‘마지막 역사, 신부 역사’에서 휴거로 ‘사랑의 뜻’을 이루셨다.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을 하듯, 이제는 그 뜻대로 ‘사랑의 삶, 휴거의 삶’을 살면 된다.

17. <자기 육신의 환경>은 ‘집’이다. <집의 환경>은 ‘정원’이다. 이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들>은 ‘삼위가 거할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관권>은 ‘정원’이다. 이를 깨닫고 항상 삼위를 모시고 섬기며 일체 되어 살아라.

18. <성약 천 년 기간>은 하나님이 마지막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때다. 이 시대는 ‘추수하는 계절’과 같아서, 하나님은 이때 아예 자신의 것으로 영원히 신부로 삼으신다.

19.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역사하시고, 마지막으로 천 년간 거두어들이는 ‘신부 역사, 황금기 역사의 때’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주관권에 들어오는 자들은 지구 세상 최고의 황금기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다.

20. <끝 날>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100% 목적을 이루셨다. <끝 날>에 못 하면 못 하기에, 100% 하신다. 고로 100% 목적을 이루셨다. 사람도 ‘끝 날’에는 건축할 것을 모두 완공하여 할 일을 하고야 만다. 이같이 하나님도 ‘끝 날, 하루와 같은 성약역사’에서 100% 하셨다.

21. 하나님은 ‘끝 날’에는 절대 하신다.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이 졸리면, ‘육신’도 졸린다.

2. <육신>이 피곤하면, ‘뇌’가 느끼고 졸린다.

3. 졸리고 피곤하면, 하품이 자꾸 나온다. <온몸>은 ‘확대시킨 뇌’다. 느끼는 대로 반응이 나타난다.

4. <몸>을 잘 느끼게 다스려라.

5. <몸>은 건드리는 대로 느끼고, <뇌>는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6. <세상 노래>는 좋게 읊으니 노랫소리는 좋은데, ‘빛 좋은 개살구’라서 내용이 없다.

7. <섭리사 노래>는 ‘영원한 것’을 얻어 놓고 살면서 그 내용을 노래하니 허무하지 않고, 기쁨으로 노래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화답하신다.

8. <세상 노래>는 다시 오지도 않는 ‘과거 이야기’를 노래하고, 쳇바퀴 돌듯 ‘육에 속한 것’만 노래한다.

9. <섭리사 노래>는 ‘영원한 것’을 얻어 놓고 하는 기쁨의 노래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노래다.

10. <세상 노래를 하는 자>는 ‘빈 조개껍질을 놓고 노래하는 자’와 같다.

11. <세상 노래를 하는 자>는 미인을 그려 놓고 그 그림 앞에서 노래하고, 미인 동상을 세워 놓고 껴안아 주며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와 같다.

12. <섭리사 노래>는 사랑하는 자를 ‘실체’로 만나서 기뻐 노래하는 것과 같다.

13. <세상 노래>는 억만 번을 불러도 ‘영원히 남아지는 것’에 아무 유익이 없다. 허무하다. 훗날에 당할 운명을 놓고 슬피 읊고 있다. 쓸쓸한 그 세계를 가 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라. 그곳에 가서 보면, 큰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다. 풀벌레 하나도 자기와 같이 놀아 줄 자가 없고, 바람도 한 점 없다. 이것을 자기 욕이 노래한 것이다. 고로 그 행위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어 거기에 처해 사는 것이다.

14. 자기 욕의 행위대로 ‘영’을 만들고 나면, 욕도 영도 다른 것은 전혀 모른다. 자기를 만든 대로 그 생각과 주관이 ‘뇌’에 꼭 차서 그것만 안다. 마치 <수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만들어지듯, ‘자기 생각의 씨’로 ‘자기’를 만든 것이다.

15. <인생>도 자기가 ‘자기 생각의 씨’로 만든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의 씨>로 자기를 만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으로 꼭 차서 그 형상이 되어 버린다.

17. <생각대로 행한 것>이 실체 형상으로 이뤄진다.

18. <씨>를 뿌렸으면 그 ‘씨’대로 형체가 이루어지듯, <자기>도 ‘생각’대로 크고 행하며 그 형체를 이룬다.

19. <기성들>도 ‘무지’로 성경을 해석하고 생각한 대로 ‘무지의 형체’가 이루어졌다. <무지의 사고>를 짝 베고 ‘아는 자의 사고’를 100% 안 받아들이면, 그 무지한 생각대로 ‘무지한 세계’로 간다. 하나님은 “100% 자기 행위대로, 자기 영을 형성한 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간다.” 말씀하셨다.

20. <자기 영의 형체>가 얼마나 중한지 알아라. <영의 형체>대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각종 위치’로 간다. 마치 <남자 형체>면 ‘남자 목욕탕’으로 가고 <여자 형체>면 ‘여자 목욕탕’으로 가듯, <영>도 ‘자기 형체’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간다. <자기 형체>를 ‘하나님께 속한 형체’로 바꾸지 않으면, 아깝게 ‘영원히 버림을 받는 곳’으로 간다.

21. 방금 쓰던 볼펜이 ‘새 펜’인데 잉크가 잘 안 나와서 쓸 수가 없다. 잉크는 꼭 차 있다. 이대로는 글을 쓸 수 없으니, 아깝지만 버려야 한다. 안 버리고 쓰려면, 볼펜 끝에 있는 ‘촉’을 빼서 갈아 끼우면 된다. 그러면 잘 써진다. 이같이 <자기 생각과 형체>를 ‘새 시대 그리스도의 생각과 형체’로 다 바꿔야 된다. <그릇된 생각과 사고>로는 자기 형체가 ‘하나님께 속한 형체’로 형성되지 못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도 갈 수가 없다.

22. <자기가 그릇되게 만든 형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돌포도나무 씨>는 커서 ‘돌포도나무’가 된다. 자기 자체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돌포도나무를 베고 참포도나무를 접붙여야 된다.

23. <그리스도>만이 ‘새것’을 만든다. 고로 구원자는 먼저 자기를 만들고 나온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새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4. <자기>를 만드는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25. <물건>도 만드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쓰인다.

26. <지체>도 만드는 대로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쓰인다. 가령 <귀>를 만들면, ‘듣는 데’ 쓰인다. 절대 ‘보는 데’에는 못 쓰인다. <입>을 만들면, ‘먹는 데’나 ‘말하는 데’만 쓰인다. 이와 같이 <자기 영>을 만든 대로 그에 해당되는 영계로 100% 간다. <하나님의 절대 법>이다.

27. <새 시대에 대해 모르고 믿지 않은 기성인들>은 ‘새 시대’를 맞는 데 실패했다. 고로 기성은 그 주관권에서만 살게

된다. <기성의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었으면, 그 영도 그리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세계로 간다. 영광도 그 형체대로 받는다.

28.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영계를 보고 깨닫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그 영광도 다 다르다. 마치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 다르다.” 했다. 이같이 영의 세계에 대해 부분적으로 써 놓았다. 바울로서는 시대적 제약으로 인해 확실히는 못 본다. 고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보면, 대강 보고 기록한 말씀도 있다. <육에 속한 형체>를 이루면 ‘육계’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에 속한 형체>를 이루면 ‘영의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영에 속한 형체>를 못 이룬 자는 ‘영의 영광’을 못 누린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4절까지가 <육신>이 행한 대로 ‘영의 형체’가 이뤄지고, <육>과 같이 ‘영’이 있다는 계시다.

29. <사탄>은 ‘정신 분열병자’다. ‘무법자’다. 고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 <사탄>은 각종 ‘악’을 ‘자기들의 선’으로 삼고 행한다. 잘못이 없어도 아무 사람에게 무조건 해를 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각종으로 괴이하게 행하며 해를 준다. 마치 남의 것을 무력으로 빼앗아 가는 자와 같고, 무력으로 행하는 폭력배와 같다.

30. <그리스도>는 먼저 조건을 세워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멸하러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왔다. 사탄들을 잡아 단두대에 올려서 사탄의 목을 끊고 지옥에 넣으러 왔다.

31. <그리스도>는 사탄을 멸하고, 시대 반대자와 악평자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것이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편이 되어 싸워 이긴 것이다. 그들은 살았다 하나, 그 영들은 ‘사망권’에 처해 죽고 끝났다. <사망권에 간 자들>은 패한 것이다.

32. 항상 <아는 자>가 ‘이긴 것’이다.

33. <전쟁>에서도 이긴 나라가 있고, 패한 나라가 있다. 패했어도 먹고 자고 할 일은 한다. 그러니 그냥 보면 표가 안 난다. 그러나 패한 연고로 해를 받고 사니, 아는 자가 보면 ‘표 나는 것’이 많다. <악 편>도 그러하다. <선 편>이 이겼어도, 악 편은 패한 대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이 시대 섭리사와 싸운 행악자들>도 그러하다. 그들은 패했어도, 육신이 살아서 먹고 자고 할 일을 하며 산다. 그러나 <영>으로 보면, 표가 난다. 멸망시키지는 않고, 굴복만 시킨다.

34. <극치의 아름다움을 갖춘 영>으로 지속적으로 만들고 닦고 다듬기다.

35. <무딘 칼>을 갈듯이 지속적으로 만들면, 아름답게 된다.

36. <영의 미>를 갖추려면, ‘자기 모순을 계속 없애기’다.

37. <낮은 골짜기들>을 보면, 주변에 산이 둘러싸여서 마치 분화구처럼 폭 들어간 곳이 흔하다. 그런데 <산이 높이 솟은 곳>은 화산이 폭발한 곳이 아니고서는 주변에 산이 둘러서 분화구처럼 생긴 곳이 거의 없다. <월명동>은 산이 높은데도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분화구처럼 생겼다. 그리고 주변 6개의 산이 꽃잎같이 둘러싸고 있다. 희귀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월명동>같이 아름답게 되려면, ‘각도별로 자기를 보면서 단점을 없애기’다.

<2018년 2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기적>이 무엇이나, <기적>에는 각종 것들이 있다. <기적>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해라. 그것이 기적이다. 그에 따르는 기적이 일어난다.

2. 최선을 다해 하면, 그 자체가 ‘기적’이다.

3. <인간의 잠재 능력>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발전하며 나타난다.

4. 사람이 생각해 봐도, 눈으로 봐도 자기 한계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자꾸 하면 자꾸 더 가게 된다. 그러다 지난날의 위치를 보면, 까마득히 올라와 있다.
5. 자기 몸과 체력을 단련하면, 점점 무거운 것을 들게 된다. 그러나 몸과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오래 걸리고, 가다 보면 한계가 있다.
6. <생각의 한계>, <몸으로 행하는 한계>는 일생을 가면서 계속 온다.
7. <몸으로 행하는 한계>는 ‘생각과 정신의 한계’보다 쉽게 온다.<정신과 생각>은 ‘영의 세계’로 연결되면, 무한하다.
8. <생각>도 ‘인간 자체 생각’은 한계가 있다. 역시 ‘인간의 한계선’까지다.
9.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신의 경지’까지 높아진다. ‘신의 상대가 되기’까지다.
10. 사명대로 생각이 발달되고, 차원이 높아진다.
11. <새벽>에 생각이 총명하다. <뇌>로 ‘생각’을 하는데, 잠을 자서 뇌의 피곤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12. <자기에게 인식이 잘되는 내용>을 들으면, 한 번만 들어도 인식이 잘되고 그 내용이 잘 암기된다.
13. <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사’는 한두 번만 들으면 기억한다.
14. <눈으로 보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과 모양’이면 한두 번만 봐도 그 형상과 모양을 잘 기억한다.
15. <뇌의 기본 특성>은 ‘집중’할 때 또렷하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도 다양하게 생각나고, 차원 높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16. <눈으로 어떤 형상과 모양을 볼 때>도, ‘보통’으로 보면 보통 수준으로 보인다. 꿰뚫어 봐야 어떻게 생겼는지 이지가지 알게 된다.
17. 어떤 것은 자기 몸인데도 세밀하게 자세히 안 보면, 평생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고 산다.
18. <자기 눈, 코, 입, 귀>를 볼 때 다른 자와 비교해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는 알 정도로 봐야 된다. 각자 얼굴이 다르듯이 지체의 구조가 다 다르다. 극과 극으로 차이가 있기도 하다. <창조주의 능력>, <신의 실력>, <야심작의 경지>다.
19.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크고 큰 산도, 돌과 바위도, 우주의 행성들도, 각종 만물까지도 기교를 부리며 만드셨다.
20. <잠언>도 수만 잠언을 썼어도 다 다르다. <하나님의 능력, 삼위의 기교와 실력>이시다. <삼위와 능력과 실력>은 ‘땅의 사명자’가 그 상대가 되어 받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춰서 받기도 한다.
21. 선생은 55년 정도 잠언을 받아 썼다. 그런데 다 다르다. 10대 초반 때도 잠언이 깨달아졌다. 그때는 글로 안 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며 생활에서 썼다. 10대 때 받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것은 “늦은 것은 뛰어도 늦은 것이다.” 하는 잠언이다. 그때 당시 교회에서 교사를 맡고 있어서 주일날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고 있었는데, 30분 정도 늦었다. 9시부터였는데, 9시 30분이나 돼서 뛰어갔다. 그때 “늦은 것은 뛰어도 늦은 것이다.” 함을 깨달았다. 13세 때 받은 잠언도 있다. “나는 좋아해도 다른 자는 싫어한다.” 하는 잠언이다. 나는 좋아서 기구를 만들어 썼는데, 식구들은 싫어했다.

22. <잠언>은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과 지혜의 말씀’이다.

23. 성장한 대로 보이고, 깨달아지고, 생각한다.

24. 나이로 보나 뇌 성장으로 보나 배운 것으로 보나 그 차원, 그 정도인데, ‘그 위의 차원에 있는 자’가 잘해 주고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차원의 생각을 하며 몸이 그만큼 느끼고 좋아할 수 있겠느냐.

25. <지혜>는 ‘자기 저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가 성장한 때의 그 위치의 저울이다.

26. 욕에 갇힌 어떤 자는 자기도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도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 상대가 어린 소녀여서 그 부모가 자기를 고소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소녀는 고등학생이었고, 그는 20세였다. 그에게 또 사랑하겠냐고 물으니, 이제는 사랑하라고 해도 배신자와는 안 한다고 했다. 고로, 사랑의 대상은 서로 사랑하기에 합당하게 성장해야 되고, 호기심과 실체는 다르다고 말해 주었다. <어린 자>는 ‘앵두나무의 앵두나 뱀나무의 열매인 버찌’와 같고, <성장한 자>는 ‘사과나 수박’과 같다고 말해 주었다.

27. <뇌의 생각>에 호기심이 들면, 흥분된 상태다. 그때 흥분된 상태에서 뇌가 작동한다. 특히 이성(異性)은 호기심으로 판단하면,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잡으려 가도 실체가 아니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모든 존재물도 절대 완성되고 써야 되듯, 사람도 절대 그 지체와 생각과 마음과 사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완성돼야 된다.

28. <과일>도 성장할 때 미완성의 상태에서 먹으면, 과일의 15% 정도도 효과를 못 낸다.

29. 사과나 배를 보면, 과일로서 최고 극치의 효과를 내는 때가 과일이 익는 시기 중 끝에서 15일 정도다. 이때 최고 극치로 완성되어 과일 맛을 낸다. <사랑의 완성>도 성장을 다 하고, 마치 과일이 익는 시기 중 끝에서 불과 15일 정도 짧은 기간에 완성되듯 완성된다. <만물의 이치>가 이와 같다.

30.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역사>도 6000년간 펴 오시고 ‘마지막 극치’에 최고 목적을 완성했다. 이때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갖추고, ‘인격과 생각’을 갖추고, ‘사랑의 맛’을 내는 데는 마지막 끝에 3년 정도 극히 짧은 기간이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였다. 그리고 6000년 동안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 2015년 3월 16일에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었다. 2012년 전까지 1978년부터 33년간 공생애 역사를 하고, 끝에서 3년 동안 극적인 완성을 시켜 ‘휴거’를 이룬 것이다.

31.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면, 마치 극치의 장소인 월명동에 오는 것과 같다. 집에서 떠날 때는 ‘0대’와 같고, 오는 중은 ‘10대’와 같고, 국도에서 들어와서 삼거리와 석막리에 온 것은 ‘성장의 완성 직전’과 같고, 월명동에 도착해서 문턱바위부터 들어오는 과정은 ‘완성’한 것과 같다. 이같이 <사랑>도 과정이 있다. <사랑>은 ‘0대 때 성장하는 사랑’도 안 받고, ‘완성되기 직전의 사랑’도 안 받는다. <마지막 완성한 사랑>만 받는다. 마치 월명동에 도착해서 보는 것과 같다. 성장은 못 속인다.

32. 신앙도, 인격도, 생각과 마음도, 행위도, 사랑도 온전히 만들어라.

33. 어린 자가 아무리 해도 일 년 내에 완성이 안 된다. <성장 기간>이 차야 된다. <성장 기간> 때 배우고 행하면서 성장된다. 고로 지도자는 이를 알고 대해야 된다.

34. <농사법>을 모르면, 안 큰 과일을 따고 익지도 않은 곡식을 거둔다. 곡식은 영양분을 다 흡수하고 물이 마르고서 거둬야 되고, 과일은 과일 맛이 드는 극치의 기간이 지나서 따야 된다.

35.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도 완성하고 때에 맞춰 하루도 어기지 않고 나온다. 하나님은 그 욕을 쓰고 그때 그날 할 일을 하신다.

36. 사명을 맡기려면 성장시키고 가르쳐라. 일을 맡기면서 가르치고, 거기에 맞게 성장을 시키는 것이다.

37. 닭을수록, 더 좋게 만들수록 빛이 난다.
38. 만들어 놓고 생각나는 대로 교정하기다. 조금 더 해서 만들면, 배 이상 좋게 보이고 전체가 아름답게 보인다.
39. 아무리 글씨를 잘 썼어도 거기에 넣어야 될 글씨가 아니면 지워야 되듯이, ‘거기에 맞는 구상’이다.
40. 자기 주관을 버리고 기도해야 혼돈되지 않는다.
41. <아는 자>가 풀어 줘야 혼돈이 안 된다.
42. 제 마음, 제 생각대로 하면 괴롭다.

<2018년 2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길이 난 것이다.
2. <동성연애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뇌신경에 길이 난 것이다.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고 흥분된다.
3. <사람>은 좋아하는 대로 생각하고, 먹고, 행한다.
4. <자기 생각이 짝 차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동등하게 여긴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도 이 정도니, 다르겠어?” 한다.
5.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짝’으로 창조해 놓으시고 이것을 절대시하셨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며,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 차원으로 길이 나서,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짝’으로 사랑해도 만족하니, 이것이 절대적이다.” 한다.
6. <남자>와 <여자>가 절대 ‘짝’이다. 이는 <편지지>와 <봉투>가 ‘짝’인 격이다. <동성연애자>는 ‘편지지’끼리, 혹은 ‘봉투’끼리 짝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고로 ‘한 가지’밖에 기능을 못 한다.
7. <동성연애자>는 자녀를 못 낳듯이, 각종으로 ‘한 가지’밖에 기능을 못 한다.
8. <상대성 짝>은 ‘두 가지’를 가지고 행한다. <짝>은 ‘물레방아’와 ‘물’과 같다.
9. <제시간에 일하는 자>는 ‘시간’과 ‘일’이 짝이 되어 행한다. 고로 ‘남녀 짝’과 같아서 ‘두 가지’를 한다.
10. <제시간에 행하지 않는 자>는 ‘동성연애자’와 같아서 ‘하나’밖에 못 한다.
11. <제시간>과 <제 일>이 ‘짝’이다. 제시간에 안 하면, ‘일’만 있고 ‘시간’이 없다. 혹은 ‘시간’은 있는데 ‘일’이 사라지고 없다.
12.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동성연애자’와 같다.
13.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자>는 ‘주체인 하나님’과 ‘상대인 자기’가 짝이 되어 하니, ‘남녀 짝’과 같다.
14. <자기 중심으로 하는 자>는 ‘동성연애자’와 같고, <주 뜻대로 하는 자>는 ‘남녀 짝’이 되어 행하는 자와 같다.
15. <상대성 세계>는 ‘머리와 몸’, 두 세계다.

16. <자위행위>는 ‘축소판 동성연애에 속한 것’이다.
17. <상대성 사랑과 일>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
18. <머리>와 <몸>은 ‘상대적 대상’이다. <삼위>는 ‘머리’, <주>는 ‘몸’이다. <주>는 ‘머리’, <따르는 자들>은 ‘몸’이다.
19. 각각 다른 것과 일체 돼야 ‘이상세계’다. 하나님의 절대 창조 법칙이다.
20. <전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다.
21. <동성연애자>는 ‘플러스(+)’끼리, 혹은 ‘마이너스(-)’끼리 짝이 된 것과 같다.
22. <전기>는 같은 극끼리 대면, 안 통해서 기능을 못 한다. <동성연애자>도 그러하고, <세상을 상대로 사랑하는 자>도 그러하다.
23. <자기 생각>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의 일체는 ‘난자’끼리 일체 된 격이다.
24. <밤>과 <낮>이 ‘일체’다. <밤만 두 개를 택해서 사는 자>는 거기에 만족하여 길이 난 것이다. <낮만 두 개를 택해서 사는 자>도 거기에 만족하여 길이 난 것이다. 이는 전기의 ‘같은 극’을 가지고 있는 자다.
25. 길이 나면, ‘자기 생각, 마음, 정신, 뇌신경’이 변화돼 버려서 길이 난 대로 해야 만족하고 기쁘고 흥분된다. 그때는 ‘비정상적인 것’에 속해 있어도 “정상이다.” 하며 극적으로 한다.
26. <자기 생각, 마음, 정신, 뇌신경>을 만들어 버린 후에는 ‘비진리’도 ‘진리’로 보인다. 정반대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가 뒤바뀌어서다. <이 시대 욕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과 뇌신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자기 생각보다 못한 것으로 보고, 정반대 쪽으로 간다.
27. <자기>를 흥분시키는 대로 그것이 ‘짜’이 되어 버린다.
28. <눈>을 ‘손’으로 가리면 ‘손’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게 보이고, ‘과일’로 가리면 ‘과일’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게 보인다. <자기 생각의 눈>에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느냐, ‘자기’를 가까이하느냐, ‘사람’을 가까이하느냐에 따라 ‘가까이한 것’이 좋고 아름답고 크게 보인다. 자기 눈에 가져다 놓으면, 자기만 그렇게 크게 보이지 다른 자들은 그리 안 보인다.
29. <생각>은 ‘눈’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가까이 생각하고 보면, 크게 보인다.
30.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도,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사람이 크게 보이고 좋게 생각된다. 이런 자들은 <사람>은 ‘1억 정도의 가치’를 두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생각한다. 이들은 <하나님>을 놓고도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은 <극락세계>를 크게 보나 <천국>의 ‘일억 분의 일’도 안 되고, <황금성 천국>의 ‘일조 분의 일’도 안 된다. 그런데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그곳에 가려고 고생한다. <자기 생각의 눈>에 그것을 가까이 대고 보니 그러하다. 절대 ‘실체’대로 이루어진다. <자기 생각>에는 크게 보여도 ‘실체’는 아니라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만큼만 존재하다 끝난다.

<2018년 2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체질과 생각>을 길들인 대로 고정되어 그렇게만 생각한다.
2. 절대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 그 속에 다 들어 있다.

3. <자기를 중심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었다. 이들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삼위의 생각’과 동등하게 여긴다. 신의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나 같다 한다. 이는 눈에 손을 가까이 대고 “내 손이 천지 만물 크기와 비슷하다.” 하는 격이다.

4. <자기 생각을 중심하는 자>는 자기가 만족하니, 자기 생각이 최고라고 한다. 배고플 때 맛있게 배불리 음식을 먹고, 자기가 먹은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 격이다. 그때 다른 음식을 먹었으면, 그 음식이 최고라고 했을 것이다.

5. <사람이 배고플 때>는 먹는 대로 그 음식이 최고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음식을 최고라고 아예 사고를 굳혀 버린다. 그러나 자기만 그리 생각하지, 다른 자들은 아예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진수성찬>을 먹고 “이 음식이 최고다.” 한다.

6.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최고라고 한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생각 흥분, 마음 흥분’이다. 고로 <자기를 흥분시키고 기쁘게 한 자>를 최고라고 한다. 자기 생각이다.

7. <메시아>가 구원해 주고, 좋게 해 주고, 기쁘게 해 줘서도 ‘자기가 좋아하던 자’가 최고라고 한다. 그는 메시아가 아닌데, 구원이 되겠느냐.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을 면하겠느냐.

8. <기성>도 ‘자기가 배운 것’이 최고라고 한다. 더 이상 없다고 한다. 선생도 거기서 20년 동안 배우고 극적으로 해 봤다. 거기서는 영적 문제도, 세상 육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 땅에서 기어 다녔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 시대 말씀>을 받고 행하고서는 ‘사랑의 대상체’ 대우를 받고, 육도 영도 땅과 하늘같이 달라졌다. 거쳐 왔으니, 다 안다.

9. <기성에서 주장하던 것>도 그 주장대로는 안 이뤄졌다. “주가 구름 타고 온다.” 하는 말은 환상적이거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니 절대 안 이뤄진다. <온전히 안 자의 것>만 이뤄졌다. 또 <기성>에서는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그 근본을 몰랐다. <휴거>, <낙원>, <천국>, <황금성 천국>은 아예 몰랐다. 지금까지 거기 구시대에 있었으면, 막대한 삶으로 육도 영도 늙어서 끝났을 것이다.

10. <배고플 때>는 ‘고염 열매’를 먹으면서 최고라고 했다. <새 시대>가 온 후에는 ‘감’을 따 먹으면서 “이것이 최고다.” 했다.

11.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아는 차원대로 길이 난다.

12. <산길>도 처음에는 앞에 바위나 가시나무가 있으니, 보다 편한 대로 길을 내서 다닌다. 그리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다니면서 모두 “이 길이다!” 하고 다닌다. 아예 그리로 길이 나서 최고라고 하며 다닌다. 그러다 길을 닦는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길을 내놓으면, 그때 비로소 ‘옛길을 다니던 자들’이 그 길을 안 다니고 ‘새 길’로 다닌다. <성경 해석의 길>도 그러하다. 자기 중심, 자기 차원대로 길을 내서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하나, ‘자기 수준의 길, 옛길’이다. <하나님 수준과 차원의 길>을 구상으로 받고 월명동 개발하듯 해야 성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13.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행한 이단들>과 <진리를 그릇되게 알고 행한 구시대인들>이 가는 길은 ‘사망길’이다. 길을 잘못 들면, ‘목적지’까지 못 가고 인생 해가 진다. 어둠 속에 묻히고 끝난다.

14. 하나님은 그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육>은 일생 동안 형통하고, <영>은 영원토록 형통한다.

15. <자기 생각을 중심하는 자>는 ‘자위행위를 하는 자’나 ‘동성 사랑을 하는 자’와 같아서 ‘한쪽’만 열고 끝난다. 이는 마치 ‘집’만 열고 끝나거나, ‘환경’만 열고 끝나는 자와 같다. 고로 <아파트의 삶>이거나, <환경만 보고 가는 여행자의 삶>이다.

16.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짜과 함께 사는 삶’이다. <집>과 <환경>을 다 열고 사는 자다.

17. <법칙을 벗어난 자들의 결국>은 ‘하나’만 얻고 ‘하나’는 전혀 모른다. 그러니 한계에 부딪혀서 인생 해가 저 간다.
18. <사람들>은 ‘자기 뇌’가 길든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채우고는 그게 최고라고 한다. <상대의 것>, <하나님과 주의 생각>으로 길들여 놓고 그것으로 채우고 행하여라. 그게 최고다. <육>도 형통, <영>은 영원한 형통이다.
19.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가 최고라고 한다. 동성 사랑도, 이성 사랑도, 자위행위도 100% 자기 흥분을 시켜 준다. 그래서 다들 최고라고 한다. 인생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 보아라. 그 위치가 어디이겠느냐? 그때는 때가 다 가서 돌이키지도 못한다. 결국 <죄>는 ‘심판’으로 끝난다.
20. <하나님과 주의 생각>을 두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며 행하면서 최고라고 하며 만족한다. 인생 해가 질 때까지 그리해 보아라. 그때가 되면 해가 저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
21. <자기 중심의 생각>은 깊고도 깊은 ‘음부, 사망’으로 가게 한다. <하나님과 주의 생각>은 하늘로 치솟아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한다.
22. <악평자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갔다. 얼마나 어린 생각이며, 미련한 생각이며, 짧고도 단순한 생각이나. 그러니 금방 한계에 부딪힌다. 그들은 누가 해를 안 줘도 스스로 ‘하행 길’로 간다. 하나님도 축복하지 않으시고, 주도 안 해 준다. 모래사막이 됐다. 종일 바람만 불고, 밤에는 온도가 푹 떨어져서 ‘겨울밤’이 되고, 낮에는 뜨거워서 볏아 댄다. 거기서 식물이 커서 열매를 맺고 밀림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쪼개셨으니, 그곳은 절대 ‘분리된 땅’이다.
23. <자기 생각>을 버려라.
24. <인생의 자기 때>는 ‘한때’다. 그때 못 하면, 못 한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때 하는 것’이 최고다. <때> 지나면, ‘좋은 때’라도 안 된다.

<2018년 2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벽>에 1시에 일어나나, 2시에 일어나나, 3시에 일어나나 ‘일어나는 것’은 똑같이 힘들다. <힘든 과정>은 다 거친다. 일찍 ‘제시간’에 안 일어나면, ‘받을 것’을 못 받는다.” 하셨다.
2. 정녕코 <제시간에 하는 것>이 ‘제 짝’이다. <제시간>에 일어나면 ‘제 짝’을 찾아 하니, 다 얻는다.
3. <시간>과 <일>은 ‘한 짝’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짝 없이 홀로’다. 그때는 시간이 없든지, 일이 없다.
4.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절대 ‘짝’이다. <짝>을 잃은 ‘동성적인 삶’을 살지 말아라.
5. 절대 ‘하늘’과 짝이다. 삼위와 일체 된 ‘주’와 짝이다.
6. <상대성>으로 일체 되면, ‘결과’가 다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주체’가 되고, 자기는 ‘대상’이 되어 서로 짝이 되어 살아 보아라.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같은 질>끼리 짝으로 삼고 행해 보아라.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머리 없는 몸>끼리는 ‘육체 덩이’에 불과하다. <사람>끼리는 ‘사람’으로 끝난다. <신>과 <인간>이다. <하나님과 주>와 <인간>이다. 그러면 구원이다.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다.
8. <짐승>도 ‘머리’가 없으면 식용으로 쓰고, ‘머리’가 있으면 한 생명체로 대하며 쓴다.
9. <상대성>이 없으면, ‘소모품’이다.

10. <동성 사랑>은 ‘소모품 같은 사랑’이다. <상대적 사랑>은 ‘영영한 생명의 역사’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영원한 말씀이다.
11. 만사에 <상대성 삶>은 영영한 ‘생명 역사의 삶’이고, <동성의 삶>은 ‘하나로 끝나는 역사, 소모품 같은 삶’이다.
12. <종들>끼리 결혼하면, ‘종’을 낳는다. <주인>과 <종>이 결혼하면, ‘주인의 자녀’를 낳는다.
13.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삶>은 ‘상대성 삶’이다. 고로 영영한 ‘생명 역사의 삶’이다.
14. <자기를 중시하고, 육체끼리 하나 된 자들의 삶>은 ‘소모품 삶’이다. 절대 육도, 영도 ‘사망의 세계’로 끝나는 삶이다. <영>이 사망으로 가면, “죽었다.” 한다. 기능을 못 하기 때문이다.
15. 일찍 일어나나, 늦게 일어나나 힘든 것은 같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면 ‘위’에 있고, 늦게 일어나면 ‘밑’에 있다.
16. <제때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되고, 안 되고’의 차이도 있다. <생각>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도 있다. ‘있고, 없고’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이와 같이 만사에 <제때 제대로 하는 것>과 <때 지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극과 극의 차이’다. 극적인 차이의 결과 속에서 살아간다.
17. <인생의 결과>를 알고 싶으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18.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밖에서 살아도 눈보라와 비바람은 다 있다. <결과>는 ‘영원한 사랑의 세계, 천국’과 ‘각종 고통의 세계, 지옥’이다. 종착지를 볼 것도 없다. <지금 사는 삶>에 해당되는 ‘대상 세계’다.
19. <이성>으로 기뻐 흥분시키나, <동성>으로 기뻐 흥분시키나, <자기 중심>으로 기뻐 흥분시키나 ‘흥분’은 다 극으로 된다. 그러나 <순리>로 ‘상대성으로 흥분한 것’과는 그 결과가 절대적으로 차이가 난다. <죄>와 <의>의 행실로 영이 형성된다.
20. <삼위와 주>로 인해 기뻐 흥분되어 살아라.
21. 자기 중심으로 기뻐 흥분되어 사나,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기뻐 흥분되어 사나, 기쁨과 흥분은 같다. 자기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위와 주와 함께 기뻐 흥분되어 사는 삶’과는 그 결과가 ‘땅과 하늘 차이’다. <소모품>과 <영구한 존재>는 그 결과가 ‘무’와 ‘유’다.
22. <절대 하나님의 창조 법칙>과 <성삼위의 구상과 생각>대로 해야 된다.
23. 자기 생각대로 해도 만족하고 기쁘고 흥분된다. 또 삼위의 생각대로 해도 만족하고 기쁘고 흥분된다. 그러나 결과는 <땅>과 <하늘> 차이다. <어둠>이나, <빛의 세계>이나나. <사탄 편>이나, <하나님 편>이나나.
24. <월명동>도 처음에 내 생각대로 ‘시멘트 계단’으로 구상했을 때도 나는 그리고 기쁘고 흥분돼서 ‘만들어 놓으면, 모두 좋아서 기뻐하겠다.’ 하고 만들기 시작했다. <자기 생각>으로 해도 기쁘고 흥분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된다. 만일 내 생각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보기도 싫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쓸쓸하고 초라하게 됐을 것이다. 실패라, 휴거를 이루고도 ‘초가집에 사는 삶’이 됐을 것이다.
25.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도 ‘나무나 철, 돌에 새긴 우상’을 섬긴다. 그것들이 자기보다 못 해도, 기뻐 흥분되어 섬기고 낙을 누리며 산다. 이는 ‘자기 흥분’이다. <상대로 인한 기쁨과 흥분>이 아니고, ‘자기로 인해 발생하는 기쁨과 흥분’이다. <자기>로 인해서 기쁨과 흥분이 오는데, <우상>으로부터 기쁨과 흥분이 온다고 하며 섬긴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사망 지옥으로 갔다. 그러니 그 영들을 돕지를 못한다.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그 짓값을 육으로도, 영으로도 계속 받는다.” 했다. 영계에 가 보면, 사람들이

우상시 하며 섬기던 자의 영들이 사망에 가 있다. 그런데 그 영들을 섬긴다. 그러니 복을 못 준다. 절대 못 준다. 자기가 그 이름으로 행하니, 행한 대로 얻을 뿐이다.

26. <상대>가 사랑을 안 줘도 ‘흥분’은 된다. 이는 ‘자기 흥분’이다. <상대>로부터 사랑이 오지 않아도 ‘상대’로부터 온다고 착각하고 느끼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들이 사망에 가 있는데 ‘나무 목상, 쇠덩이, 돌덩이’를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들이 복을 준다고 한다. 이는 <어른>이 ‘발육이 안 된 어린아이’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자극하니, 자체적으로 흥분하는 격이다. 그런데 상대에게서 사랑이 왔다고 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나무 목상, 쇠덩이, 돌덩이’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대고 자극하니까 기뻐 좋아하며 흥분하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같은 마음이 솟아난 것이다. 이는 <자기 사랑의 지체>를 나무 목상, 쇠덩이, 돌덩이에 대고 자극하여 흥분하고는 그것들로 인해 ‘상대 사랑’이 왔다고 하는 격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27. <마음과 생각>은 ‘뇌 과일’이다. 그 과일을 ‘우상’이나 ‘세상’에 대고 자극하며, 우상이나 세상을 상대로 삼고 짝이 되어 살면서 그로부터 기쁨을 얻는다. <결과>는 모두 ‘사망의 세계’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짝으로 삼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영원한 구원’을 이룬다. <육>도 잘되고 형통한다.

29.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은 영원토록 ‘황금성 천국’에서 살고, <육>은 땅에서 일생 동안 형통하여라.

<2018년 2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약속하고도 안 한 죄, 심정 상하게 한 죄, 삼위의 기대에 어긋나게 한 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죄들> 다 회개해야 된다.

2. <회개>는 더러운 때를 밀듯이 스스로 해야 한다. 안 하면, 때가 찌들어서 살이 얼룩진다. 고로 모두 보고 무서워서 피한다.

3. <죄>는 배설물을 버리듯 스스로 회개하여 버려야 된다. 안 하면, 계속 쌓이고 쌓여서 그로 인해 ‘병’이 생기고, 고통을 못 견디고 쓰러진다.

4.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고통을 받으며, 죄로 인해 각종으로 얻을 것을 못 얻고 살지 말고, <회개>하여 의롭게 살면서 ‘의’를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살아라. 그로 인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5. <의>는 ‘돈’과 같다.

6.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의가 ‘값’이 되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7. <의인>은 어디를 가나 ‘의’로 인하여 고통도 받지만, 결국 ‘의’로 인해 형통하게 된다. 고로 ‘의로운 택한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의의 나라, 황금성 천국’에 가게 된다.

8. 약속하고 안 하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9. <약속한 것>은 꼭 해야 된다. 하는 자만 안다.

10. <의로운 약속>은 지키고, <악의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11. <삼위와 약속한 것>을 행하며 계속 높은 차원에 오르면, 결국 ‘딴 세계’에 이른다.

12. 이스라엘 민족은 고생된다고 하며 원망하고, 약속을 못 지켰다. 고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13. 주가 십자가를 질 때, 같이 죄를 모두 청산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14. <자기 죄>는 ‘자기가 회개하는 것’이다. 자기가 못 해서 주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가 계속 십자가를 못 지니, 각자 자기 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15. <정식(定食)>만 먹고서는 안 된다. <간식>을 먹어야 되듯, ‘말씀 정식’을 먹고 그 외에 개인이 기도하고 만물 계시나 꿈으로 받아 깨닫고 행해야 된다.
16. <죄>도 짓고서 양심에 가책될 때 즉시 회개해야지, 지난 후에는 양심에 가책도 안 되고, 감각이 무뎌져서 그냥 지나가게 된다. 고로 죄가 그대로 있는 자가 많다. 그러면 후에 ‘천국 문’ 앞에서 더 못 간다.
17. 아예 처음부터 잘하고 계속 잘해야, 그 일이 끝에 가서도 잘되어 있다.
18. 처음에 못하다 중간에 뒤집기도 하는데, 그것은 가끔 ‘기적’으로 된다. 아예 처음부터 잘하고 계속 잘하면, 끝에 가서 완성할 때도 잘되어 있다.
19. 글씨 한 자도 ‘첫 획’부터 잘 쓰고 계속 잘 써야, 다 써 놓아도 잘 써져 있다. 처음에 ‘한 획’을 못 써 놓으면, 나머지 잘 써도 그 글자는 절대 작품이 안 된다.
20. 만사의 일은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렇게 하신다. 고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동일하게 세심히 하신다. 모두 이같이 하면, 완전하다. 확실하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1.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사탄과 귀신들을 이긴다.
22.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변함없이 주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면, 이긴다.
23. <과일나무>는 ‘종류’대로 열매를 열지만, <사람>은 ‘행위’대로 그 열매가 열린다.
24.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열고,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연다.
25. <악한 열매>를 따 없애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없어진다.
26. <죄>를 지으면, ‘회개’하여라.
27. <죄>를 짓고 ‘회개의 때’가 지나면 시한폭탄이 터지듯 터지니, 즉시 회개하여라.
28. <죄>는 스스로 썩어 터진다. <때>가 되면 시한폭탄이 터지듯 터진다.
29. <사탄>이 폭탄의 핀을 빼니, 터진다. 또 <죄>로 썩어 들어가니, 수술해서 살리듯 하나님은 썩은 것들을 심판하신다.
30.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다. 해를 넘기지 말고 회개하여라.
31. 지난날을 보니,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죄들이 폭탄이 터지듯 터졌다. 결국 죽음과 고통이었다.
32.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여라. 그러면 육의 마음과 생각도, 행실도, 혼도, 영도 깨끗하게 되리라.

33. <죄>가 있으면, 그 영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육>이 회개를 하면, 그 혼도 영도 '죄'가 없어진다.

34. 회개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용서하신다.

35.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자기를 묶는 사슬'이 되어 자기 육과 혼과 영을 사망에 묶어 놓는다.

36.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를 통해 죄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주어 행하게 하시고, 삼위를 사랑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신다. 그리함으로 사랑하는 자의 혼과 영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속한 하늘 형제'로 변화되게 하신다.

37.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이 된다.

38. <육>은 땅에서 '성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영>은 황금성 천국에서 '천국에 속한 영'이 되어 산다. 그러다 <육신>이 죽으면, 황금성 천국에서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은 진실이며, 참이다. <주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누구나 이 말씀과 같이 된다.

39. <네 생각>이 '네 운명'을 좌우한다.

40. 삼위를 기쁘게 해라. 기도다. 회개다. 차원 높이기다. 전도해서 가르치기 등이다.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신부로서 사랑을 완벽하게 하기도.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목적>에 따라 거기에 맞춰 계시하시므로, '더 좋은 만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

2. <목적>에 따라 거기에 맞춰 '자연 계시'도 하신다.

3. 항상 눈여겨봐야, 합당할 때 계시하시면 깨닫는다.

4. 항상 하늘을 쳐다봐야, 비행기가 가는 것도 보인다.

5. 항상 깨어 간구도 하고 대화도 해야, 불현듯 홀연히 계시하셔도 쳐다보고 알게 된다.

6. 계시한 만물로 깨닫고, 또 그 결과가 깨달은 대로 되는지 봐야 된다. 깨달은 대로 일어나면,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니 맞는 계시다.

7. 계시를 받고도 결과를 못 얻은 때가 있다면, '책임'을 못 한 것이 있어서다.

8. 항상 잘해야 잘된다.

9. 삼위일체는 모든 것에 있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인간으로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만족하다.

10. 인간끼리는 사랑하고 즐기며 잔치해도, '그 주관권 세계'다. 곤고함과 허무다. 영원성이 없다.

11. <영원한 자>가 '주인'이고, <나머지>는 가다 끝난다. <육>이든, <영>이든 끝까지, 영원히 가야 된다.

12.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와 일체 된 자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13.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아라.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주인’이다.

14. <육계>에서도 ‘끝까지 존재하는 자’가 ‘주인’이다.

15. <끝까지 존재함>이 ‘최고’다. <악인들>도, <이단들>도 가다 스스로 끝난다. <주인>만 남아 계속 존재하게 된다. <그들이 모아 쌓은 것>도 ‘끝까지 남은 자의 것’이 된다.

16. <월명동>도 ‘끝까지 남은 자의 것’이 되었다.

17.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진정 일체 되어 사는 자는 끝까지 남게 된다.

18. <영원한 땅>을 두고도 ‘누가 끝까지 남느냐’다.

19. <구시대 땅>에서 끝까지 남으면 ‘구시대인’이 되어 ‘기다린 역사’를 못 맞는다.

20. 보낸 자가 태어나고 70년이 되던 해가 중했다. 왜 메시아가 땅에 오고 70년 만에 휴거를 이루고, 성자가 땅에 오신 지 70년 만에 휴거를 이뤘을까? <70년>은 ‘총 구원역사 7000년’을 백 분의 일로 축소한 숫자다. <7>은 ‘완전 수’다. <70>은 ‘완전 수’다. <70년>에 맞추기 위해 주도 1945년에 태어나게 했다. 일본의 속국에서 그해에 해방됐다. 그해에 ‘세계 평화 기구 UN’이 설립됐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만에 그친다고 했다(단 9:2). <하나님 역사의 때>와 <성경의 예언>을 모두 맞춰야 되기에 예정대로 ‘70년’만에 휴거를 이뤘다. <성자 재림 역사 70년>이다. <7000년을 축소한 기간의 역사>다. 메시아 당대 역사는 <천 년 역사의 십분의 일, 한 세기 역사>다.

21. 선생은 기성에서 ‘성전 건축’에 두 번 참여하여 기쁨과 흥분의 잔치를 했다. 첫 번째는 <사랑방 초가집 교회>에서 ‘나무로 지은 집 15평 교회’로 간 것이다. 그 교회로 가서 기뻐 뛰고 좋아했다. 두 번째는 베트남에 다녀와서 돈을 벌어서 교인들과 ‘40평 성전’을 짓고 기뻐 잔치했다. 이같이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전’을 사거나 건축하는 역사를 했다. <새 역사>에서는 ‘옛 시대, 기성’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성전 역사’를 했다. <시대 자연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고, 10년이 넘어서부터 시작했다. 계속하고 있다. 건축이 다 된 데는 쓰면서 계속하고 있다. 또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 역사가 일어난 곳’에는 성전을 짓거나 성전을 사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기성>에서는 구시대적으로 하고, 작게 했다. <새 시대>는 ‘새 시대’에 해당되게 했다.

22. <시대>는 ‘위치 값’이다. <위치>가 ‘보화’다.

23. <새 시대 위치>는 ‘구시대 위치’보다 그리 좋다. 환경이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고 살기다. <새 시대 위치>다.

24. <수석>이나 <형상석>은 비싸고 가치가 있듯이, <지역>에 ‘형상’이 있거나 ‘환경의 모양’이 갖춰져 있으면 비싸고 가치가 있다.

25. <환경>이 좋으면, 값의 절반까지도 차지한다. <환경 값>이다. 그다음에 <땅 값>이다. 그다음에 <집이나 건물 값>이다.

26. <신앙을 하는 위치>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약’이나에 따라 그리 다르다. <구약>은 명산을 멀리서 쳐다보는 위치에서 사는 격이고, <신약>은 그 산기슭에서 사는 격이고, <성약>은 그 명산의 계곡에 집을 짓고 그 산을 정원으로 삼고 사는 격이다.

27. <환경과 위치>가 중하다. <환경과 모양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그리 크다. 그곳이 ‘보화’다.

28. <사람>도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신앙으로 갖추는 것’을 갖추고 만들어서 살면, 그리 가치가 크다.

29. <귀한 것, 자기 것, 만든 것>을 귀하게 쓰기다.

30.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줄을 모르고 귀히 쓰지 못하면, ‘일반 것’을 가지고 쓰는 자와 동일하다.

31. <귀한 것>을 귀히 안 보면, 점점 멀리 대하다가 잃게 된다. 그러다 아예 생각도 안 나게 된다. 사탄이 가져가도 모른다.

32. <삼위가 주신 것>을 기록해 놓고 늘 보고, 확인하고, 관리하기다. 주신 자와 하나하나 대화하며 ‘영광과 감사의 생활’이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불의한 일>을 참으면 그로 인해 ‘불의한 생각’도, ‘불의한 행위’도 안 하게 되어 없어져 버리고, 그로 인해 마음에 ‘선의 느낌’이 계속 와서 마음도, 생각도 한동안 기쁨이 연속된다.

2. <불의한 일>을 못 참고 해 버리거나, 혹은 <분노>와 <혈기>를 내버리면 그로 인해 악 쪽으로 스트레스는 풀리지만, 기쁨도 없고 마음도 생각도 몸도 ‘불의’로 인한 영향을 계속 받게 된다.

3. <이성>도, <음란물>도, <술이나 담배>도 못 참고 해 버리면 ‘순간의 불의의 기쁨’은 오지만, 그로 인해 생각이 ‘불의한 쪽’으로 굳어지고 죄책감이 연속된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그로 인해 ‘의의 길’로 가니, 기쁨과 희망이 연속된다. 또한 <죄>에 매이지 않으니, 일사천리로 그 주관권에서 얻을 것을 계속 얻고 간다. 불의와 분노를 참고 그 행위를 안 하면, 그 결과가 그리 크다.

4. 뉴스를 보니, 10대 소녀가 어린 초등학교를 유혹해서 죽이고, 시체를 끊어서 봉투에 담아 옥상에 버리고, 일부는 친구에게 건네주었다고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 주시어 징역 20년 형을 받고, 공범자 친구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TV나 영화, 소설책을 보고 영향을 받아 아무 이유 없이 그리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소설책이나 각종 화면들을 보지 말아라. 이런 일을 안 당해도, 스스로 자기 생각과 뇌신경에 극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영>까지 ‘지옥’으로 기우는 문제가 생긴다. <뇌신경>과 <생각>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하며 기도했으면, 이같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자녀들을 수시로 살펴야 된다.

5. <의를 행하는 낙, 의를 행하는 기쁨>이다. 그로 인해 ‘육에 속한 것’을 얻으면, 육 평생 기쁨이고 <영에 속한 것들>을 얻으면, 영 영원히 기쁨이다.

6.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기쁨>과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는 기쁨>은 영원히 간다.

7. 자기 육과 영을 구원시켜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해 주고, <영>은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고, <육>은 땅에서 일생 동안 잘되고 형통하게 해 주는 ‘주’를 사랑하며 사는 기쁨, 그리고 주를 통해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8. <불의>는 불의를 행하고 나서부터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된다.

9. <참고 견뎌서 안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체질을 만들어서 안 하는 것>이 있다.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뇌도 생각도 마음도 체질이 돼서 안 해진다. 뇌도, 생각도, 마음도 ‘술을 안 먹는 체질’로 만들면 10년, 20년이 가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히려 술을 즐기는 자만 봐도 극으로 반대한다. 이같이 자기 성질, 혈기, 각종 불의도 안 하는 체질로 만들면, 생각이 그리 바뀌어서 ‘의’에 서서 살아간다. <체질>을 만들어야 쉽지,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10. <분노나 화, 혈기를 안 내는 자들>은 체질을 그같이 만들어서 생각과 뇌신경이 별로 영향을 안 받는다. 고로 가볍게 넘어간다.

11. <몸을 단련하여 추위를 안 타는 체질>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은 춥다고 하는데도 “시원하다.” 한다. 오히려 냉수 목욕을 해야 몸이 가볍고 좋다. <몸>도 길들이기에 달렸고, <마음과 생각>도 길들이기에 달렸다.

12. <음식>도 ‘먹고 싶은 것을 참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길을 들어서 체질화하면 음식을 봐도, 누가 먹고 있어도 오히려 그 음식을 불신하며 “썩는 음식을 즐긴다.” 한다. <탄산음료>도 먹는 데 길을 들이면, 지나가다가도 꼭 사 먹고 간다. 어떤 자는 참으려고 눈을 가리고 가기도 한다. <안 먹는 자>는 옆에 놓고도 한 달, 두 달이 가도 안 먹으니 결국 버린다. <체질>을 바꿔야 된다.

13. <술>도 안 먹는 자들은 입에만 대도 비위 상한다고 한다. 술을 안 마시면, 그로 인해 병에 걸릴 염려도 없고, 술 먹고 제정신이 나가서 일을 저지를 염려도 없고,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 칠 염려도 없다. 이같이 ‘체질’을 만들어서 아예 안 해 버리면, 불의를 행해서 지옥에 갈 염려도 없고, 사고 날 염려도 없다.

14. 섭리사 안에서 결혼하고도 연애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두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하시니, 깨닫고 돌이켜라. 속이는 자는 점점 성 밖으로 스스로 나간다. 속이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관권 밖’으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

15. <불의한 길>도, <선한 길>도 ‘하룻길’이 아니다. 매일 해가 지듯, 지구가 돌듯, 시침이 가듯, 계절이 가듯 점점 가게 된다.

16.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을 안다. 계속 가면, <불의한 길>은 ‘결국’에 이르고, <선한 길>도 ‘결국’에 이른다.

17. <병>도 진행됐는데 그냥 놓아두면, <암>이 점점 온몸에 퍼지듯 한다. 치료하면, 점점 낫는다. <신앙>도,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18. <지옥>도 순간 절벽에서 떨어지듯 가지 않는다. 천 리 길을 가듯 자기 육신의 불의한 행위가 연속되어 점점 지옥으로 간다. <천국>도 ‘자기 육신의 행위’가 오랫동안 연속되어 ‘천국’으로 걸어간다. 고로 얼마든지 더 잘할 기회가 있다. <지옥>으로 가고 있어도, 자신이 얼마든지 돌이킬 기회가 있다.<목적지>는 ‘자기 삶의 결과’로 결정된다.

19. <물건이나 땅을 살 때>도 어떤 것은 순간 나와서 급히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고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물건이나 땅을 살 때 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현장에서 즉시 물어보아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디든지 계시고, 주의 영도 어디든지 있으니 그 즉시 묻고 해라.

20. <교회>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지었다.

21.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의 실력과 차원대로 역사하여 행하신다. 고로 사람이 기술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더 빛을 내며 행하게 된다.

22.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때 행한 자의 입장과 환경’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다.

23. <교회나 기타 건물들>도 그 처지와 환경이 그러하니, ‘외부’는 그 같은 구상으로 하고, 대신 ‘내부’에 중심을 두고 아름답고 세밀하게 만들기도 했다. 고로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보고 결정해라.

24.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건축한 교회라도, 어떤 교회는 겉모양이 멋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겉모양이 별로인 것도 있다. 이는 <위치>에 따라 ‘겉모양’과 ‘속 모양’을 냈기 때문이다. 땅이 좁은 데는 겉모양을 못 낸다. <겉모양>을 내면, <속>이 너무 작게 되기 때문이다. 고로 <겉>은 최대한 땅을 써서 짓되, 겉모양보다 <속>을 아예 크게 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한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건축자에 따라 겉도, 속도 모두 아름답게 하기도 했다. 사연이 다 다르다.

25.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을 두고 안 쓰겠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지상에 나의 뜻을 퍼는 데 쓰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고, 역사를 퍼는 데 썼다. 고로 모두 보면, 사연과 의미가 다 있다. 이미 건축자가 구상하고 건축할 때

더 좋게 하도록 나 여호와도 성령도 성자도 역사하였으니, 시대성을 보고 자세히 깨달아라.” 하셨다.

26. <하나님의 성전>이라 기성에서도 모두 전심을 다해 눈물겹게 건축하고,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고 투자하듯 했다. 그들의 힘으로는 더 할 수 없이 힘들게 했다. 어떤 교회는 빛을 내서 짓고, 그래도 힘들어서 내놓고 팔기도 했다. 이미 하나님은 섭리사에 주시려고 건축할 때부터 구상하시고 계획하시어 더 신경을 써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이 살 것을 알고 더 신경 써서 만들었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건축자들이 건물을 지을 때 ‘성전을 건축하여 주님을 맞고 살겠다.’는 소망으로 지었다. 그런 뜻을 두고 최고 아름답게 구상하고 정성으로 투자하면서 나와 함께 지었노라. 그런데 빛 때문에 교회를 팔게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그들이 교회를 지을 때도 엄청난 빛을 지면서 해야 됐다.” 하셨다.

27. <새 역사>에서는 건축 기술이 없어서 못 하니, 하나님은 ‘기성’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시고 2년, 3년, 5년 내에 내놓게 하셨다. 이는 ‘새 역사’를 위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 것이다. 미리 예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행여 기성같이 돈이 있어도, <새 역사>는 연륜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한다. 고로 기성에서 건물을 짓게 하시고, 신부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 같은 삼위의 계획과 사연을 깨닫고 귀히 대하여라. 그 사연을 후대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기념 전’으로 써라. <주>는 너희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여 다 가르쳐 준다. 구체적인 것은 주를 통해 다 들어라. ◎ 이어지는 말씀은 내일 새벽에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교회를 지을 때 <겉>은 환경상 네모지게 만들거나, 혹은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어도 <속>은 아름답고 실속 있게 했다. 어떤 건물은 <겉>을 더 아름답게 하고, <속>은 보통으로 했다. 또 어떤 것은 <겉>도, <속>도 최대로 하여 ‘주’를 상징하여 짓기도 했다. 그들이 ‘오실 자 앞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항상 <대표>만 하면 상징적으로 다 한 격이 되나니, 이를 너희가 깨닫고 행해야 하나님이 정녕코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

2. <성전의 개성>은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짓게 하신다. 또 처음에 땅을 구할 때는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에 건물을 짓게 하신다. 그리고 도시가 계속 발달되어 ‘도시 속에 묻힌 건물’이 되게 하셨다.

3. 하나님은 ‘섭리 신부들이 쓸 성전’을 두고 각종으로, 사방으로 생각하시면서 ‘예비하는 자들’을 통해 미리 건축하게 하셨다. <기성>도 너희같이 성전을 마련하느라 오래 고생하고, 파란곡절과 몸부림의 사연들이 많았다. 그들도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30년, 40년이 걸렸다. 너희만 30년 만에 성전을 마련한 것이 아니다. 보낸 자가 시대 십자가를 지며 기도한 그 숫자를 기념해서 준 교회를 보아라. 기성 목사를 통해 30년에 걸쳐 성도들을 모아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섭리사를 위해 주지 않으셨느냐. 모두 깨달아야 대화가 되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

4. <집 마련하기>, <교회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항상 삼위일체와 연결해서 봐야, 그 사연을 알고 감탄하게 된다.

5. 처음 성전을 샀을 때, 애타게 몸부림치면서 장만하고 좋아 감사하던 그 첫 마음, 첫사랑을 잊지 말고 늘 ‘사랑하는 애인’같이 여기고, ‘주’로 여기고, ‘삼위’로 여기면서 기쁨과 희망이 쉬지 않고 연속돼야 한다. 첫사랑이 용광로 같았어도 결혼하고서 그 사랑이 식어 녹슬면, 아무리 성전이 금덩이라도 무미한 것이다. 늘 좋아서 기뻐 만족하며 써야 된다. 처음 사랑을 잊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 것들이 보람이 없게 된다.

6. <월명동 자연성전>같이 늘 기뻐 좋아하며 ‘궁’같이 써야 된다.

7. <시대 하나님의 전인 각 교회들>은 ‘월명동 자연성전’과 연결된 ‘성전’이요, ‘궁’이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같이 사는 시대 하나님의 전>을 시대 생명들로 가득 채워라. <시대 복음>은 생명들을 2부, 3부 예배까지 가득히 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8. 섭리역사 40년 동안 행하여 그리도 원했던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이루고 성전들을 얻었으니, 평생 그 기쁨을 잊지 않고 ‘자기 영광 혼의 집’으로 삼고 삼위와 주와 함께 가지 있게 쓰며 살아야 된다.

9. <교회를 사려고 하는 곳>은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성령과 주와 함께 ‘예비하신 곳을 주심’을 믿고 찾아라. 1년 365일 찾으면, 때가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나오니 그때 찾는 자들이 찾게 된다.

10. <목적이 있는 자>가 ‘찾는 것’을 쉬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다. <첨단 기술>은 ‘계속 찾는 것’이다. 365일 동안 지키면 어느 한 날에 지나가니 그때 만나게 되듯, 건물도 그러하다.

11. <도적>도 365일 지키면 완전하다. 만사에 이같이 해라.

12. <전도>도 그러하다. 365일 중에 언제 마음을 돌이킬지 모른다. 고로 365일 동안 쳐다보다 마음 문이 열릴 때 그때 하면 된다.

13. <삼위의 행하심>을 자세히 보아라. 모르면, 하나님이 앞에서 사람을 쓰고 행하셔도 모른다.

14.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15. 사람들은 자기 잠재 능력을 실컷 못 쓰고 조금 쓰고 기뻐하다, 희망도 보람도 그것으로 끝난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그 생각과 지혜대로 실컷 쓰신다. 그리고 그때마다 값을 주시며 ‘쓰임을 받는 자들’이 육도 영도 기뻐 살게 해 주시고, 이들이 영원히 누리며 쓰게 그 대가를 또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했다고 <육의 것>도 그리 주시고, <천국의 것>도 주시어 영원히 쓰며 살게 하신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한 일을 두고 ‘세상’에서 <육의 것>으로도 그때그때 다 주시고, <영의 것>으로도 주시어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해주심이 얼마나 크냐. <영원한 것>을 ‘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16. 하나님도 주도 안 믿고 살면, ‘육의 것’만 보상받고 끝난다. 그러다 하나님과 주를 안 믿고 산 행위대로 ‘영’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시장에 가서 조금 헐하게 주고 좋은 것을 사서 오늘날 유익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곳’을 받고 이와 함께 지구에서 평생 살면서 받은 유익과 보람보다 일억 만 배도 더 좋은 것을 받고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 자기에게 ‘영원히 살 곳’을 주는데도 모르고, 생각을 달리하고 산다. 가르쳐 주면, 다 한다.

17. 사람은 ‘더 좋은 것’을 얻으려 그리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으면, 기뻐 좋아서 산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과 황금성 천국’을 거저 주는데도 모르고 산다. 영원한 황금성 천국을 받으면, 그곳에 집과 환경이 있는 한 계속 기뻐 좋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 감격하고, 늘 영광 돌리고, 사랑하며 산다.

18. 지구상에는 ‘황금성 천국의 집 한 채’만 한 것도 없다. 지구에는 자료가 없어서 못 만든다. <다이아몬드>도 지구상에는 ‘축구공’만 한 것이 없다. 그러나 황금성 천국에는 가공된 다이아몬드가 ‘축구공’만 한 것도 있고, ‘애드벌룬(ad balloon)’만 한 것도 있고, ‘큰 건물’만 한 것도 많다. 지구 세상에서는 ‘천국의 작은 건물’만 한 것도 자료가 없고,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든다. 또 비싸서 못 만든다.

19. <황금성 천국의 건물들>은 ‘다이아몬드 건물’이고, ‘순 황금 덩이 건물’이다. 이 같은 건물은 지구상에 한 채도 없다. 만일 ‘작은 초가집’만 하게 지으려 해도, 금이 몇백 톤이 들어가니 짓지를 못한다. 순금 한 관(3.75kg)은 약 1억 8천만 원이다. 1톤이면, 약 480억 원이다. 100톤이면, 4조 8천억 원이다. 500톤이 든다면, 24조 원이 든다.

20. <황금성 천국>을 귀히 안 여기면, 스스로 뺏긴다. <물건>도 자기가 가진 것을 귀히 안 여기면, 결국 자기가 팔아서 없애게 된다.

21. 하나님이 주신 월명동 자연성전도 귀한 곳인데 모르면, 하나의 산골짜기로 본다. 모두 황금 골짜기이다. <성자바위, 형상석들>도 모두 ‘금덩이, 보화 덩이’다. 모르면 못 느끼고, 기쁨도 못 누린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자기 것’이다.

22. 어떤 자는 100억짜리 고려청자를 가지고 있었다. 가치를 모르니, '7000만 원만 받아도 다행이다.' 하며 1억도 못 받고 잘 팔았다고 하며 기뻐했다. 그 후 알고 보니, 그 청자기는 100억이 넘는 것이었다. 이같이 <신앙>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신 축복과, 주를 통해 주신 축복을 모르면, '휴거 신앙'을 팔아 버린다. 그러고서 더 이상 기쁨이 없어져서 '왜 이러지?' 하고 모르고 산다. <영>은 알고, 그 육에게 영향을 준다.

23. <자기가 차원이 낮아서 좋은 것을 못 택하고 낮은 것을 택하고 좋아하는 자>라도 위사람들은 '좋은 것을 택한 자'와 같이 대해 줘야 된다. <부모>도 자녀들을 개성대로 다 대해 주고, <정부>도 백성들이 하는 일들은 다 같이 좋게 대해 준다. 차원이 낮아서 고생하고 살아도, 줄 것은 같이 다 해 준다. <주>도 그러하다.

24. <월명동>도 자기 좋은 대로 더 좋은 곳과 더 못한 곳을 택해 놓는다.

25. <과일을 줄 때>도 다 하나씩 준다. 못한 데서 놓고 만족하든지, 더 좋은 데서 놓고 만족하든지 안 따지고 다 같이 대하고 준다. 자기들끼리는 '못한 데'는 못하게 대해 줘도, 위에서는 같이 대한다. <위>는 '위치'가 달라서다.

26. <계시할 자료>가 옆에 있어도, '계시할 것'이 있어야 계시한다.

27. 이 시대는 '생명의 주'를 미워해서 죽었다. <주>가 조건을 세우고, 휴거로 살아났다. 고로 '산 자'가 '죽은 자들의 죄'를 대신하며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주>가 '죽은 자들을 살릴 조건'을 세웠으니, 복음만 전해서 살리면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을 살릴 조건을 세운 것'이 허사가 된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계속하면, 기술이 없어도 골문으로 공이 들어가듯이 들어간다.

2. 지속적으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3. 거듭해라.

4. 부드럽게 대해라.

5. <골프공>은 5만 번을 치면 홀인원이 된다. 이같이 계속하면 된다.

6. <글>을 쓰든지, <승부>를 겨루든지 못해도 계속하면 된다.

7. <차원 높이기>도 반복하면 된다. 한번 차원을 높여서 '다음 차원'으로 가면 다시 안 내려와진다.

8. <승리의 비법>은 '여러 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다.

9. 꿈에 골프공 두 개를 놓고 멀리 있는 '한옥 문'을 맞히는 경기를 했다. 공 두 개를 놓고 계속 치니, 결국 두 개가 문의 창호지를 뚫고 방으로 들어갔다. 이같이 계속하면, 결국 들어간다는 것이다. <공>은 '사람'도 되고, '일'도 된다. '어떤 일을 성공시키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10. <시>를 쓸 줄 몰라도 계속 쓰면, 결국 '시'가 된다.

11. <볼>을 칠 줄 몰라도 계속 치면, 잘 차게 된다.

12. <그림>을 그릴 줄 몰라도 나무든 동물이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그리면, 잘 그리게 된다. 이같이 <노래>, <말씀 전하기>, <전도>, <강의>, <관리>, <휴거 차원 높이기> 등 각종 분야도 계속하면, 잘하게 된다. <모든 삶>도 그러하다.

13. <삼위와 가까이하는 것>도 계속하면, 결국 삼위 옆에서 살게 된다.
14. <주와 가까이하는 것>도 매일 지속적으로 도전해야 '주와 가까이 붙어 사는 신앙'이 된다.
15. <가수가 되는 것>도 더 잘 부르기 위해 수백 번씩 불러서 가수가 된다.
16. <농사>도 계속 연구하며 지으면, '달인'이 된다.
17. <암기하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 외우면, 뇌에 암기가 된다.
18. <성경>도, <시대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말씀 체질'이 된다.
19. <행하는 것>도 반복하여 해야 된다.
20. <성공>을 놓고 '반복'해야 성공한다. <반복>하면, '공력'이 된다.
21. <불가능한 것>도 '반복하기'다.
22. <반복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23. <100계단>을 놓고 반복해서 올라야, 결국 끝까지 오른다. <가다 마는 자>는 '실패자'다.
24. <천 리 길>도 '반복 걸음'이 없이는 목적지까지 못 간다.
25. <연습할 때> 수천 번씩 반복해서 할 수 있게 해 놓고, '경기장'에 들어간다.
26. <음식>도 입에 넣고 반복해서 깨물어야 제분된다. 그래야 음식물이 <위>로 가서 위 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주무르면서 '소화액'이 나오고, 소화된 음식물에서 나온 영양분이 '장'으로 흡수된다. 거기서 최대 10~16시간 정도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각 지체에 그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면 각 지체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지체의 기능'을 하게 한다.
27. <월명동>도 '돌 쌓기'를 반복했다. 결국 <하나님의 구상>으로 완성하여 '백보좌 상징 작품'으로 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 저마다 <자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반복해서 만들기다.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게 반복해서 회개도 하고, 반복해서 말씀도 듣고, 수십 가지를 반복해서 행하며 만들어라.만들기만 하면, '인생 성공'이다.
28. <꿈>에서 무엇을 하다 말아서 안 되면, '생시'에서도 안 된다. 계시로 보인 것이다.
29. <집을 지을 때>도 '집을 지을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반복해서 만들어야 결국 '완성'된다.
30. 돼지를 길러도 반복해서 물을 갈아 주고, 먹이를 준다. 다 크면, 잡아먹게 된다.
31. 반복해야 '존재물'을 느낀다.
32. <사랑>도 한두 번 해서는 못 느낀다. 반복해서 매일 수십 번씩, 수백 번씩 해야 '하나님의 높고도 높은 사랑'을 깨닫고 느낀다. 그러면 그 반응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을 나눠 주며 역사를 편다. 하다 말거나 적당히 하면, 그 선에서 살게 된다.
33. <꿈 영계>도 반복해서 구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터득해서 '달인'이 되어야 '앞날의 계시'도 받고, '도'를 깨닫게도 된다.유능해야, 하나님과 성령님도 '꿈'을 통해 할 말을 전달하신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유능한 쪽’으로 전달하신다.

35. <만물 계시>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서 배워야 유능해진다. 고로 만물을 보면, 순간 계시하시는 것을 안다.

36. <만물의 글>도 계속 배운 자만 읽게 된다.

37. <만물의 글>은 ‘일반 글’과 다르다. <만물>을 보면, 읽는다. <글>을 배우면, ‘글’을 쓸 줄 안다. <말>을 배우면, ‘말’을 할 줄 안다. <만물의 글>을 배우면, 만물을 보면서 동시에 ‘계시’를 풀어 읽는다.

38. <본인>이 겪고 배워라. <만물의 글>을 읽고 통달하면, 삼위와 즉시 대화하고 통하게 된다.

39. <만물>은 모두 ‘존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는 자>는 ‘해, 달, 별, 지구, 소나무, 돌, 형상석, 물, 바다’라고 그 ‘이름’을 읽듯이 <만물의 글을 아는 자>는 삼위가 만물로 계시하시면 그 ‘뜻’을 읽는다. 가령 까치가 짖으면, “반가운 일이 있구나. 길조다.” 하고 읽고서 구체적으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읽는다. <받는 자>만 안다. <손님을 기다리는 자>는 “손님이 온다.” 하고 읽고, <건물을 사는 자>는 “거래가 안 되던 건물을 사게 된다.” 하고 읽는다. 또 “편지가 온다.” 혹은 “전도했던 자가 다시 온다.” 하고 읽는다. 수십 가지다. <만물 계시>를 보이면, 그것을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동시에 읽는다. <만물의 글>을 읽어라. 배워라.

40. “까치가 짖으면 길조다.” 해도, 계시를 받는 자만 구체적으로 안다. 거기에 해당되는 자만 알고 행한다. 이같이 <시대>가 왔어도 ‘깨닫고 맞은 자’만 새 시대에 해당되어 역사를 펴 간다.

41. <만물의 글을 읽는 자>만 ‘주인’이 된다.

42. 여러 명이 운동을 하는데 까치가 짖으니, 모두 “길조네. 반가운 일이 있으려나?” 했다. 일반적으로 까치가 짖으면 “길조다. 반가운 일이 있겠다.” 한다. 그러나 <만물의 글을 배운 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행한다. 선생은 <만물의 글>을 배워서 아니, 까치가 짖는 말을 듣고 “알았다.” 했다. 그러니 까치가 날아갔다. 탄 자들이 “길조네.” 하고 말해도, 그 말을 듣고는 까치가 안 날아갔다. 까치가 짖을 때 “사람들이 네가 있는 곳에 와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을 전해 주라고 했다.” 하고 들렸다. 그들이 기도하며 말한 것을 까치가 전달받고 왔던 것이다. 나중에 편지가 와서 보니, 그때 내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하고 간 자들이 까치가 옆에 있어서 전해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100% 확인됐다. 이와 같이 ‘만물의 글’을 읽을 줄 알면, ‘삼위가 주신 계시의 뜻’을 알게 된다.

43. 메뚜기가 뛰든지, 곤충이 나타나면 “벌레다.” 한다. 그것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읽는 자는 만물을 보면서 동시에 ‘계시의 뜻’을 읽는다.

44. <꿈>에서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길을 뒤흔다 말아서 더 이상 갈 수 없었다. 이를 알고, 다른 길로 다시 걸었다. 그 길의 끝에 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개 두 마리가 있었다. 쓰다듬어 주니 흰 개도, 노란 개도 나를 따라왔다. 이것을 읽기만 하면 ‘하나의 꿈’이다. 이것을 풀어서 읽으면, 전도한 생명을 두고 말함이며, “그의 인생길을 전환하게 해라. 끝 집이다.” 함이다.

45. <보인 만물>과 ‘실체’는 전혀 달라서 ‘계시를 받은 주인’만 본다.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존재물>은 ‘어떻게 제조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인생>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 <음식>은 ‘가공’이다. <인생>도 ‘가공’이다.

3. <인자한 모습>이 눈으로 안 보이면, 행해라. 그러면 보인다.

4. <성자바위>를 보면, 조각가도 표현하기 어려운 모습이 있다.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이다. <근엄한 모습>이다. 성자바위에서 ‘하나님 형상’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고 근엄한 이미지가 뚜렷하다.

5. <작은 자연적이나 형상적>에는 ‘인자한 모습’이나 ‘근엄한 모습’이 극히 없다.

6. <사람 형상>에도 ‘이미지’가 있다. 날카롭거나, 혹은 너그러운 이미지다.

7. <눈, 코, 입이 다 있는 사람 형상적>이라도 ‘목적한 자의 이미지’를 안 풍기면, 그의 형상으로 안 본다. 고로 <사람 형상의 돌>이라도 ‘누구 이미지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았다.” 한다. <이미지>에 따라 ‘주인공’을 본다.

8. <성자바위> 중에 ‘하나님 형상’ 쪽으로 보면, ‘눈, 코, 입, 귀, 턱, 머리’가 있다. 그 이미지는 첫째, ‘인자한 모습’이다. 확실히 보인다. 하나님은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둘째, ‘근엄한 모습’이 형상으로 확실히 보인다. <인자한 모습>과 <근엄한 모습> 두 가지 모습이 보이면서 ‘사랑과 자비로움’을 풍긴다. 이는 <형상>으로 안 보이고, ‘느낌’으로 풍긴다. <인자하고 근엄한 모습>은 ‘형상’으로 보인다. 아주 특이한 모습과 형상이다. 그 얼굴을 동상으로 떠도, 그러한 이미지가 나오기는 아주 어렵다.

9. <풍기는 이미지>가 안 닮고, <느낌>이 없으면, ‘딴 자’로 보인다. <조각>으로 ‘그 사람’의 모형을 떼어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안 풍기면, 보는 자는 그 사람으로 안 본다.

10. <성자바위>의 <하나님 형상>을 보면, 첫째 ‘인자한 모습’, 둘째 ‘근엄한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두 가지 모습의 조화 속에 ‘사랑과 자비로움’이 느껴져 오는 모습이다. 아주 신비한 형상 바위다. <머리 쪽>은 ‘머리’로도 보이고, ‘산 정상’의 최고 끝 부분’같이 보인다. 이는 <최고 높은 존재자의 모습>을 느끼게 해 준다.

11. <성자바위>의 <성령님 형상>은 처음에 봤을 때 ‘서양 사람’의 느낌이 들었다. 그 후 자세히 보니, 생머리에 목선이 길고 아주 큰 여자로 보였다. 깊이 봐야 ‘감동’이 풍겼다. 슬쩍 봐서는 잘 안 보인다. 여자 형상으로 머리, 이마, 코, 입, 턱, 얼굴이 다 있어도 깊이 쳐다봐야 보이고, 깊이 보면 ‘감동’이 온다. 자세히 보면, 형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엄마 같은 모습’을 풍기고, 계속 보면 ‘여왕의 느낌’이 온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랑’으로 감동이 된다. 또 <미와 사랑>을 풍긴다. <성령님 형상>도 ‘이미지’로도 풍기고, ‘형상’으로도 보인다. 그리고 <눈>은 ‘꿰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머리 위쪽에는 ‘전쟁의 날에 예비한 무기, 전투기 형상’이 따로 있다.

12. <성자바위>의 <성자 형상>은 ‘카리스마 이미지’를 풍긴다. 머리와 눈, 코, 입, 얼굴이 다 있다. <위엄 있는 모습>이다. <근엄한 이미지>도 보인다. <사랑>을 외적으로 풍기기보다, ‘사랑이 머리에 꽂 차 있는 모습’과 ‘머릿속에 진리가 꽂 차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13. <성자바위>의 <인독수리 형상>을 보면 사람 형상도 보이는데, ‘입을 꼭 닫고 있는 형상’이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입 안에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독수리 형상’도 보인다. 곧 쫓아가서 쪼려는 모습이다. <사람 형상>으로 보면, 코가 ‘독수리의 부리’같다. 고로 ‘사람’으로도 보이고, ‘독수리’로도 보여서 ‘인독수리 형상’이라고 한다. <머리>는 ‘편안한 한 폭의 산 형상’으로 보인다. <아래 턱>은 날카롭게 나와 있어서 카리스마를 풍긴다. <머리>는 커서 ‘할 말이 머릿속에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동방 나라에 독수리를 보내어 뜻을 이룬다.” 하셨다. <독수리 같은 구원자>다. <메시아>를 말한다. <인간 독수리>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정녕코 뜻을 이룬다고 하셨다.

14. <성자바위>의 <성령님 형상 위치>에서 뒤쪽을 보면, 동물 중의 ‘치타’ 형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머리가 둥글고 거의 ‘공’ 같다. 얼굴에 치타의 눈과 눈물 흐른 선이 보이고, 줄무늬 형상이 보인다. <코>는 ‘치타의 코’같이 둥그렇게 보이고 입과 머리가 보인다. <입을 다물고 사냥하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다. 빠르게 행한다고 주가 <치타>로 별호를 지어 준 ‘조은 목사 상징’이다. <성령 상징>도 된다. <치타>는 지상에서 뛰어다니는 동물 중 제일 빠르다. <빠르기의 왕>이다. 고로 ‘치타’는 빠른 구름이 되어 행하는 하늘 신부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섭리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한다. “치타같이 빠르게 행하여라.” 하고, 성자께서 표상으로 주신 것이다. <치타>는 고귀하고 탐스러운 동물이다. 고

로 왕들이 왕궁에서 기르기도 하고, 치타를 데리고 사냥을 하기도 했다.

15. <성자바위>의 <치타 형상> 뒤쪽에서 각도를 돌려 보면, ‘얼굴을 숙이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코>가 약간 찌그러져 있고, <입술>이 두툼하고, <눈>이 폭 들어갔다. <목>은 코끼리 목같이 굵고, <머리>는 큰 모습이다. 그리고 ‘권투 글러브’를 끼고 좌측 눈 쪽으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세계 권투 왕>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의 형상이다. 이 모습도 어느 날 새벽에 ‘성자바위에 다른 형상이 더 없나?’ 하고 자세히 보다가 발견하고, 성령님께 이 형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자세히 보면, 치고받고 싸워서 이긴 흔적이 얼굴에 ‘상처’로 보인다. 다 보낸 자를 상징한 형상이다.

16. <성자바위의 6개 얼굴 형상>은 ‘끝내주는 형상’이다. <끝내주는 수>는 ‘6수’다. <끝내주는 것>을 숫자로 ‘6’으로 나타낸다. <끝내준다,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은 ‘휴거’로 표현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최고 좋은 것>에는 ‘휴거’를 붙이고 표현하신다.

17. <인생>도 흠이 없이 최고로 만들었을 때 “휴거 인생이다.” 한다. 모두 ‘휴거까지 이룬 자’가 되어야 한다. 섭리사 외에 세상에는 ‘휴거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섭리사 안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 ‘휴거’를 이룬다.

18. <휴거가 안 된 자>는 ‘팔방미인’이어도, ‘팔십방 미인’이어도 ‘사랑의 대상’으로 안 쓴다. <휴거가 안 된 자>는 매일 늙고 쭈그러져 ‘육’으로 끝난다. 허무하고, 그 가치가 별로다.

19. <노래>도 ‘휴거와 상관없는 세상 노래’는 자기네끼리만 “크다.” 한다. <휴거>를 노래하면, ‘영원한 황금성 천국 세계’다.

20. <월명동 지형>은 ‘휴거’로 표현한다. 거기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휴거’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또, <성자바위>에 ‘6가지의 얼굴 이미지와 형상’이 완벽히 갖춰져 있듯이 <월명동 지형>에 ‘6명의 남녀 형상’이 있고, ‘초승달 형상’과 ‘큰 의자, 백보좌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월명동>은 기도동산을 중심해서 백보좌 좌우에 12개의 산이 둘러싸여 있다. 한쪽에 6개의 산이 둘러싸여 있다. 풍수지리에서 최고로 치는 ‘자미원, 최고 길성지’는 좌우에 산이 둘러싸여 있다. <월명동>은 크게 보면, 한쪽에 6개씩 산으로 둘러싸인 ‘자미원 형상’으로 완벽하게 이뤄져 있다. 또 <월명동>은 ‘독수리 형상’과 ‘용의 형상’이 완연히 보인다. 또 전체가 ‘금단의 열매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월명동은 <휴거>라고 표현하는 ‘최고 작품’이다. 고로 <보는 자>는 “이런 모양이구나! 으앗!” 하고 한 번에 보고 느낀다.

21. <월명동을 둘러싼 6개의 산>을 가 보면, 다 아름답고 멋있다. <앞산>은 넓어서 모임하기에 좋다. <동그래산>에는 선생이 어릴 때부터 키워서 70년 정도 된 소나무가 있다. 선생 나이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자를 세워 놓았다. 정자에 둘러앉아서 식사하기도 좋고, 찬양하기도 좋다. <전망대 산>에서는 21년 동안 산(山)기도를 했던 대둔산이 보이고, 그곳에서 이야기하기도 좋다. 쉽터가 된다. <기도동산 뒷산>은 기도하기에 좋다. 거기에 ‘기도 표적 솔’도 있다. 산 불이 났을 때 나무들이 다 타 죽었는데, 기도해서 그 ‘기도 표적 솔’ 한 주만 살았다. 어릴 때 눈이 오면, 그 소나무 밑에서 기도했다. 기도하여 죽음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모두 기도해라. <고래바위 산>은 어릴 때 선생이 놀던 장소다. 사연을 나누며 이야기하기에 좋다. <해 뜨는 조산>은 ‘월명동을 보는 전망 동산’이다. <가는골 산>은 산책하기에 좋다. 솔향기가 나는 길이다.

22.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위치’만 그 위치에 있지, 특별한 지형이 없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도 지금은 별 흔적도 없다.

23. 하나님은 마지막 신부 시대 때 환경과 형상이 100% 갖춰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와 ‘사랑의 뜻’을 펴셨다. <그 환경과 형상이 갖춰진 곳>에서 <그 목적>을 이뤘다.

24. <식물>도 ‘그 환경, 그 지역’에서 난다. 환경과 기후가 맞아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마치 <축구장>에서 ‘축구’ 하고, <배구장>에서 ‘배구’ 하고,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격이다. <대나무> 밑에서 ‘대나무’가 자라고,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가 자라는 격이다. 이같이 <그 족속>에서 ‘그 족속이 원하는 자’가 난다. 이는 유전자가 ‘XX 유전자’이면,

여자가 태어나는 이치와 같다. <여자>이면, ‘태반’이 있고 ‘금단의 지체’가 있는 이치와 같다. 이같이 <사람>도 ‘그 사명을 가진 자’가 ‘그 사명’을 한다.

25. <생긴 이미지>가 중한 것이다. <지형>도, <돌>도, <형상석>도 생긴 대로 대하고 이름도 짓는다. <집>도, <건물>도, <나무>도 생긴 대로 이름을 짓고, ‘작품’이 된다. 무조건 이름만 짓고,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알고, 신비함과 오묘함을 깨닫고 믿고 따라라. 삼위께 영광을 돌리며 사연을 나누고, ‘사랑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라.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보는 것>이 ‘쓰는 것’이다. 1. <아름다운 지구 세상>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이다.
2. 보면, 느끼고 기뻐하니 <보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3. <듣는 것>이 ‘쓰는 것’이다.
4. 들으면, 느끼고 기뻐하니 <듣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5. <눈>으로 보고 먹고, <마음>으로 느끼고 먹고, <귀>로 듣고 먹는 것이다. <맛>은 ‘느낌’이다.
6.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눈’으로 보고 먹고, ‘마음’으로 느끼고 먹고 산다.
7. 많이 보고 느끼려면, ‘생각의 차원’을 높여라.
8. 많이 느끼려면, ‘영적’으로 차원을 높여라. <영>으로 느껴라. <정신과 생각>으로 느껴라. <육>은 감각이 둔해서 ‘영의 세계의 근본’을 못 느낀다.
9. 느껴야 성공한다.
10. 가까워야 느낀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몸을 달게 하고 살아라. <마음과 생각이 일체 되어 사는 자>는 마치 ‘몸이 달아 사는 자’와 같아서 늘 느끼며 깨닫고 행한다. 고로 성공한다.
12. 문전옥답이듯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도 가까울수록 ‘보화’다.
13. <몸이 달아 느끼는 것>과 <눈이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르다. <몸이 달아 느끼는 것>은 몸에 달은 것이 ‘뇌 신경’에 전달되어 직접 뇌로 느끼고, <눈이 보고 느끼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느낀다.
14. <눈>은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느끼지만, <몸>은 달아야 느낀다. 몸에서 떨어지면 1m나, 10m나, 100m나, 1000m나 동일하다.
15. <거리>에 따라 ‘가치’가 좌우된다. <거리>에 따라 ‘보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16.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남의 것이냐, 자기 것이냐’가 좌우된다.
17. 멀리 있어도 ‘자기 것’이면 크다. 가까이 있어도 ‘남의 것’이면 작다.
18. <아름다운 것들>이 멀리 있어도, 이것이 ‘자기 것’이면 ‘기쁨과 희망의 대상’이 된다.

19. 멀리 있어도 '자기 것'이면 귀하다.
20.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령님과 주의 것>이 되어라.
21. 잘 계산하고 따져 보아라. <계산>을 잘못하면, '좋은 것'도 별로라고 한다. 그러면 얻을 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
22. <자기 삶의 차원>에 따라 '보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23. <농사를 짓고 각종 작물을 키우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옥토'를 보화로 여기며 산다. <작품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논밭을 다 팔아서 '계곡이나 바닷가의 절경'을 보화로 보고 그곳을 산다. 이같이 자기 삶의 차원대로 보화로 보는 것도 다르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르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자기 삶의 차원이 다르니, 거기에 해당되는 '삶의 보화, 생활의 보화, 환경의 보화'가 다르다.
24.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거기의 주인'이 된다.
25. 강가나 바닷가, 계곡과 같은 물가를 좋아하든, 혹은 산을 좋아하든, 혹은 도시를 좋아하든 다 '자기 개성과 취향과 체질'대로다. '자기 삶의 차원'대로다.
26. 동물도, 사람도 각각의 뇌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구성되어, 그것을 좋아하며 산다.
27. 거기에 빠져서 '뇌 체질, 생각 체질'이 되어 살면, 다른 자가 더 좋은 것을 줘도 마치 자기 몸에 안 맞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자기 체질에 안 맞으니 싫어한다.
28. 어떤 자는 진수성찬을 줘도, 안 맞으니 싫어한다. 체질상 식물성 음식이 몸에 맞으니 그런 자에게는 나물이 진수성찬이다.
29. <환경>도, <집>도, <사랑하는 대상>도 모두 자기 차원대로 좋아하며 산다.
30. <문제점>만 보면 불만이고, 곧 망할 것같이 보인다.
31. <문제점>만 보면, 불만불평이다.
32. <미인>도 그 형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것만 보면, 얻지 못한다.
33. <좋은 점>만 찾아서 보면, 행복해진다.
34. <장점>은 80% 정도 된다.<단점>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단점을 보고 포기한다.
35. <문제점>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고 전체와 좌우를 모두 살펴보아라.
36.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운동>도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하듯이, <기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2. 운동하기 싫어도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하니, 건강하게 되었다. <기도>도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하면, 건강해진다.
3. 하기 싫어도 산을 넘어 들을 건너가고, 또 화가 나서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계속 갔다. 계속 가니, 결국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다리던 자들을 반갑게 만나, 나머지 길은 차를 타고 사랑받으며 간다. 그러니 다음 목적지에서 별장을 얻고 기뻐 잔치한다.이같이 괴로워도, 가기 싫어서 소리를 질러도, 목적지를 향해 계속 가니 사망에서 벗어났다.

4. <기도>도 처음에는 하기 싫고, ‘이때 다른 일을 하지, 기도해서 뭐 하지? 시간 낭비다.’ 해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가서 매일 이상세계를 이룬다.

5. 힘들지만, 모두 기도해라. 늘 삼위께 사랑을 드리는 기도, 주를 위한 기도, 감사기도,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 회개기도, 개인과 가정,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 섭리사를 위한 기도, 서약하는 기도들이다.

6. <기도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7. <이단 종교, 우상 종교>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며 생명들을 데려간다. 구원역사 6000년 만에 이루는 최고 역사를 주가 와서 같이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저마다 사명을 못 하면, 저들이 생명들을 사망권으로 데려간다. 그들의 차원으로 한번 가면, 다시 올라오기가 정말 힘들다.성령님은 말씀하시길, “한번 가면, 다시 오고 싶어도 악평자들의 운명같이 그 운명이 뒤바뀌어 거의 오기 어렵다.” 하셨다. 왜 그런가 하면, 형벌 기간이 40년, 400년씩 되니 그 형벌을 받고 와야 하기 때문이고, 또 그 형벌을 받다 보면 정신이 사망으로 뒤바뀌니 못 오는 것이다.

8. 동물이나 곤충도 자기 주관권을 떠나 살면, 본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 주관권이 바뀌어도, 거기서 살 수는 있으니 안 가게 된다.

9.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기성’으로 가겠느냐. 다시 ‘이방’으로 가겠느냐. 한번 떠나왔으면, 거기로는 다시 안 가게 된다. <천국>도 그러하다. 천국에 한번 갔는데, 다른 데를 가겠느냐. 이같이 <사망으로 간 영>도 한번 사망으로 가면 다른 데를 안 가게 되는 것이다. 그곳은 사탄들이 ‘사망권의 영들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삼고 스릴을 즐기는 곳이니, 나오기가 힘들다.

10. <생명권>에서 살면, 혼자서도 백만, 천만 사탄을 다 이긴다. <사탄 세계, 사망권>에 가면, 어린 사탄도 못 이긴다.

11. <사탄 세계>에 가면, 그곳은 사탄들의 세계이니 그들이 다스린다. 고로 생명권에서 황우같이 놀던 자라도 어린 사탄에게 끌려다닌다.어떤 영은 자기를 지키는 사탄만 보면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했다. 그 영은 섭리사에서 크던 자였다. 사탄 노이로제에 걸려서 정신이 돌아 버리고 본정신이 아니었다. <사망>으로 가면 그 어떤 자라도 정신이 돌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쓰기가 어렵다.

12. <사람의 생각>은 민감하여 잘 변한다. 마치 화재를 만나면 입고 있던 옷이 여기저기 타고, 화상을 입어서 예전 얼굴이 사라지고, 몸도 불구가 되어 있듯, 사망권에 갔다 오면 그 정신과 생각이 이같이 된다. 그러니 쳐다봐도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미 다른 자가 와서 같이 살고 있으니 그에게 마음이 안 간다. 너희가 영계를 못 보니, 성령과 함께 밝힌다.

13. 어떤 자는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서 옥에 있다 왔는데, 정신이 돌아서 예전과 다르게 멍하고 항상 판생각을 했다. <섭리사에 있다가 사망으로 간 자들>도 한번 사망으로 나가면 그러하다. 이들은 모여서 악평만 한다. 만나서 그리 악담하고, 각종 음모를 한다.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러하다. 사탄이 그들의 육신도 뺏고, 혼도 뺏고, 영도 뺏고 산다.하나님이 “그들이 악을 행하였으니, 행위대로 처리한다.” 하시면, 그들은 사망으로 간다. 한번 사망으로 가면 끝난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들이 나가기 전에 잡아라.”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섭리사를 나가는 것 자체가 정신 이상인 것이다. 나가면 ‘생명록’에서 아예 빼 버리니, 다시 보기 어렵다.” 하셨다.

14. 집에서 키우는 개도 6개월 동안 나갔다 다시 찾아서 데려오면, 예전과 다르다. 데려다 놔도 늘 들로 나간다. 섭리인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떠돌던 자들은 마치 들개같이 되어 그리 말씀을 들어도 못 참고 나간다. 한번 품에서 떠나가면, 다시 오기가 그리 어렵다. 그러니 주를 제대로 믿고,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5.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너무도 모른다. 본인이 혼자 구원받고 휴거되려면 만 년을 해도 안 된다. 어리고 지능이

낮으니 모른다. 구원시키고 휴거시켜 줘도 귀하게 안 여기더니 그리웠다. 그러면 주는 어쩔 수가 없다. 다 해 줘는데도 자기가 못 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공의로 하늘 시간을 주었다. 귀하 대해 주었어도, 자기가 못 하면 귀하 만들 수가 없다.

16. 하나님이 섭리사에 주를 통해 그리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도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토질이 다르고,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쩔 수가 없다. 수만 명씩 길러 보면, 겉으로는 보기에 크고 좋은 차인데 그 생각과 사고가 ‘자전거 엔진’보다 못하니 안 된다.

17. <무지의 죄>가 크고 큰 죄니라. 배우면, 알고 죄를 안 짓게 되나니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큰 보람인지를 알아라.

18. <학문>은 ‘기본’이니라. 사람에 대해 배우고, 사회에 대해 배우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워라.

19. 배울 때 잠깐이면 배우고, 쓸 때는 평생 쓴다. <영원한 것>은 배워서 실천하면 ‘황금 덩이, 생명 덩이’가 되어 영원토록 쓴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마음과 생각>이 기쁘게 느끼도록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켜라.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킨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 안에서 생각하면, 말씀을 주신다. 고로 그 말씀을 전심으로 실천하면, 마음도 생각도 몸도 기뻐서 흥분된다.

2. <마음과 생각>이 가만히 있으면, 느낌이 없다. 느껴져야 하고 싶은 것이다.

3. <생각>을 놀리면, 무기력해져서 ‘보고 느끼는 감도’가 약해진다. 느끼는 감도가 약해지니, ‘반응’도 약해져서 행하지 않게 된다.

4. <흥분>이라고 하면, ‘이성에 흥분되는 것’ 하나만 생각한다. 이것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마음 흥분, 생각 흥분 중의 하나다. <마음 흥분, 생각 흥분>은 무한대로 있다.

5. 집중해서 해야 마음과 생각이 기쁘고, 그로 인해 흥분된다.

6. <뇌와 생각에 자극을 주어 흥분되는 것>은 ‘이성 사랑으로 인한 흥분’과 비교가 안 된다. 영원한 것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7. <생각>을 흥분시켜야 기도를 해도 깊이 들어간다. 가령 계곡에 들어가는데, 가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흥분돼야 자꾸 들어가게 된다. 마음과 생각이 흥분되지 않으면,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8.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마음을 흥분시켜서 원하는 일을 하게 한다.” 하셨다. 작든지 크든지 모든 일에는 마음과 생각이 흥분돼야 느껴지고, 그로 인해 그 일에 시동이 걸려서 하게 된다.

9. <뇌>는 안 느껴지면, 시동이 안 걸린다. 고로 할 일을 자꾸 눈으로 찾아라.

10. 기쁨과 희망으로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키고, 감사하며 흥분시키고, 찬양하며 흥분시켜야 온몸의 신경이 느낀다. 고로 좋아서 하게 된다.

11. 가만히 있으면 말초신경이 느끼는 데 둔감해지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도 둔해진다. 고로 안 해진다.

12. <신경>을 가만히 두면, ‘늙은 몸’같이 된다. 젊어도, 신경을 가만히 두면 ‘50세, 60세의 신경’이 된다.

13. <신경>은 ‘감도’다.

14. <몸>도 쓸수록 ‘감도’가 좋아진다.

15. <생각>이 최고로 감도가 좋고, 그다음은 ‘신경’이다. 그다음은 ‘몸’이다. 이 세 가지를 잠재우지 말고 항상 가동시켜야 된다.

16. 흥분해야 기쁘다.

17. <말씀>을 들어도 ‘신경’이 둔감하면, ‘생각’도 둔감해지고 ‘몸’도 둔감해진다. 본인이 ‘자기 신경과 생각과 몸의 감도’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

18. <신경>은 쓸수록 ‘느끼는 감도’가 발달된다. <느낌>이 발달되면, 그에 따라 ‘생각의 감도’도 좋아진다.

19. <뇌신경이 마비된 자들>은 뇌신경으로 못 느끼니, 생각으로도 몸으로도 못 느낀다. <뇌신경과 생각을 안 쓰는 자>는 ‘뇌신경이 마비된 자’와 같다.

20. 계속 ‘뇌신경과 생각’을 써야 된다. 안 쓰면, 뇌는 아주 둔감하게 된다.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육>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위해 써야 된다. <세상의 썩은 문화나 이성>으로 쓰면, 뇌신경이 아무리 예리해져도 결국 ‘사망에 속한 뇌신경’이 된다.

21. <뇌신경>은 생각할수록 무한하게 발달된다. 뛰고 달리며 각종으로 몸 운동을 하면, 신경이 자극되어 온몸이 흥분되고 그로 인해 계속 기쁨으로 행하니 건강이 좋아진다. 이같이 <뇌>도 생각할수록 신경이 자극되고 흥분되어 계속 행해지고, 그로 인해 생각도, 신경도 발달된다.

22. <뇌>를 가만히 두면, 무기력해지고 병이 든다. 마치 <몸>을 가만히 두면, 무기력해져서 몸의 장기들이 약해지고 병이 드는 격이다. <뇌>도 <몸>도 건강해야 되듯이, 신앙도 그러하다. <육>을 통해 ‘영’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해 간다. <육신>은 늘 늙어 가니, 육신을 가지고 매일 ‘영’을 위해 만들어라. 그러면 육신이 늙어도 ‘영’을 가지고 있으니, 후회가 없다.

23. <영>을 위해 ‘육’을 실컷 써야 된다. <영>을 위해 안 쓰면, 마치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 없어지듯 육이 죽으면 남는 것이 없다. 먹고 일해서 부지런히 남겨야 된다. 그러면 육으로도 평생 쓰고, 영으로도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된다.

24. <몸>을 놀리고 <생각>을 놀리면, 고스란히 자기에게 손해가 온다. 무엇이든지 해 놓아라.

25. <월명동>도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어 놓으니, 이제 쓰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켜 주실 때 안 했으면 해 놓은 것도 없이 몸만 늙고, 마치 아이스크림 녹아 없어지듯 청춘만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물어보고 이야기하며 깨닫고 써라.

26. 전심을 다해 뛰고 달려야 땀이 나듯, ‘마음과 생각의 흥분’도 조금 해서는 안 된다. 열나게 행해야 그 일에 흥분이 되고, 그로 인해 ‘초인’이 되어 행해진다. ‘표적’이 일어난다.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식물인간들’이니라.

2. (성령님) <줄 때만 순간 감격하고 좋아하는 자, 조금 지나면 잊는 자들>은 ‘우둔한 인생, 철새 인생, 암체 인생, 치

매 인생'으로 본다.

3. <늘 준 것을 감사하며 사연을 이야기하고 쓰는 자, 영에 속해서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행하는 자, 또 받게 조건을 쌓는 자, 가치를 알고 기뻐하며 주신 자와 늘 사랑의 잔치를 하는 자>가 되어라.

4. 이것을 해 주면 변치 않고 사랑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삼위와 주께 영광 돌리고 증거하며 살겠다고 해 놓고, 조금 하다가 안 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이며, '사기꾼 신앙을 하는 자'다.

5. <귀한 것>을 받으면, 감사 감격하며 빛이 나게 써야 된다. <주신 근본자>께 영광 돌리며 보람 있게 쓰고, 주신 자와 늘 사랑하며 오순도순 살면서 귀히 써야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두고 5년 동안 감사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니, '주신 것에 대한 사연'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과 연결시켜 그와 같이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주시어 '기쁨의 잔치'를 하게 해 주셨다. 한번은 월명동 윗집 산에 있던 예쁜 소나무를 얻었는데, 쓸 곳이 있어도 베지 않고 계속 키웠다. 어느 날 그 소나무가 정말 필요했다. 사람이 한번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을 해야 기쁘고 스릴 있고 흥분되고 그리 좋다. 게다가 아무래도 수십 년 동안 기른 소나무를 누가 베어 갈 것 같아서, 그전에 내가 베어다 필요한 곳에 귀히 쓰려고 했다. 내가 목적인 것에 쓰기에 정말 좋았다. 아주 표 나게 쓰려고 했다. 가정에서 제일 귀하게 쓰는 것이 '홍두깨'다. 수시로 쓴다. 고로 '홍두깨'로 만들어 쓰고, 또 나뭇가지로는 '지계를 받치는 작대기'로 만들어 쓰고, 또 일부는 '지계를 만드는 대'로 쓰려고 했다. 고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생각이 떠올랐다. 아예 남이 못 베어 가게 하는 방법이었다. 곧 철사를 나무 밑에서부터 감아 놓는 일이었다. 철사로 나무 밑을 감아 놓으면, 의식이 돼서 나무를 안 벤다. 결국 그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안 벤 것이다. 두 줄기 중에 한 줄기는 다른 사람이 '인삼 지지대'로 쓰려고 베어 갔다. 이는 나머지를 가지고 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는 그 사람을 통해 잘라 가게 하신 것이다.

7. <예언할 때>와 <예언이 실체가 됐을 때>는 그 기쁨이 너무도 다르다.

8. <월명동>도 미래를 두고 예언했을 때는 모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했다. 위치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했다. 예언한 선생만 믿었다. 동네 사람들 중에도 여기서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난다는 음성을 듣거나, 혹은 월명동이 개발돼서 버스가 올라오고 청중이 밀려오는 꿈의 계시를 받은 자도 있었지만, 말 같지 않다고 하며 마음에만 두고 말하지 않은 자도 있었다. 사명을 하며 증거해야 되니, 하나님이 범석 목사에게는 '선생 사명에 대한 계시'를 성경의 요한 계시록 19장 내용같이 선생이 말을 타고 오는 것으로 꿈에 보여 주셨다. 범석 목사가 처음에는 삽과 팽이를 가지고 월명동 개발을 시작했다. 그때 선생도 가서 같이 했다. 삽에 줄을 매고 양쪽에서 잡아당기며 흙을 밀어냈다. <구상>은 하나님만 아시고, 행하는 대로 '인봉'을 열어 주셨다. 다 해 놓은 후에야 '행한 자'만 안다. <행한 자>만 답을 얻고, 결국을 얻기 때문이다.

9.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자>만 안다.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10. 하나님은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야기해 주지 않으신다. <행한 자>만 '그 수고와 순종한 대가'를 얻고 영광을 본다.

11. <휴거 역사>도 2015년까지 '행한 자'만 보고 얻었다.

12. 하나님은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는다. 무엇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이것 해라." 하고 감동만 주신다. 고로 하면, 얻고 '이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하고 안다. 안 하면, '무(無)'로 끝난다.

13. <월명동>도 "돌을 쌓아라. 땅을 사라." 하고만 말씀하셨다. 돌을 쌓으니, '이래서 쌓으라고 하셨구나.' 알게 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절경과 비경으로 부활되고 휴거되었다.' 했다.

14. <휴거>는 '더 이상 없다. 최고다. 끝났다.' 할 때 쓰는 단어다.

15. 하나님도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쉬셨다. <휴거 시간>이다. <6000년 종교 역사>를 하시고 ‘휴거 후 천 년 동안 혼인 잔치 기간’이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쉰다. <끝나는 휴거 같은 날>이다.이같이 <휴거>는 ‘영’이 신부로 다 변화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을 이루고 ‘황금성 천국’으로 간 것이다. <영>이 휴거되어 영원히 ‘황금성 천국’에 가서 살고, <육>도 땅에서 ‘휴거된 삶’을 살게 된다. <행한 자>만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행하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가 된다.

16.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은 ‘기다리는 희망과 재미, 기쁨’으로 사나, <휴거 주관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모르고 살다 죽는다. 전도되어 ‘하나님의 휴거 주관권’에 온 자들은 배우고 행하여 휴거를 이루게 된다. 한 세상에서 살아도 서로 모르고 살아간다.

<2018년 3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소문>보다 ‘질’이 안 좋으면,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후에는 사용을 안 하게 되고, 발길을 돌린다.

2. 가령 소문에 ‘새로운 과자’라고 해서 샀는데, ‘식빵’을 가지고 튀겨서 만든 것이면 실망한다. 아예 수준을 낮게 보고, 후에는 안 사게 된다.<소문>은 별로 안 낫어도 호두나 아몬드 등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은 재료로 만들었구나.’ 하고 가치를 높게 본다. <사람>도 그러하다. <간판>보다 ‘질’과 ‘기술’이다.

3. <맛>보다 ‘건강’이다. ‘영양’이다. <맛>이야 조미료를 쓰면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도 맛있다.

4. <모양>이나 <맛>이나 <멋>은 속일 수 있어도 ‘영양’은 못 속인다. <섭리사 말씀>은 ‘모양’이나 ‘맛’을 중시하지 않는다. <섭리사 말씀>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는 순리의 말씀’이라서 이뤄지지도 않는 거짓이나 허황된 표현을 안 한다. 거짓된 말이나, 하나님 앞에 외람된 말, 무지한 말, 상술적인 말, 임기응변으로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편다. 가령 <금>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다른 것은 못 섞듯, <섭리사 말씀>도 그러하다. 다른 말을 섞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시고 뺏으신다.

5. <섭리역사 40년간 외친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 섭리사와 민족과 세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6. <허황된 자들>은 ‘메시아가 재림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되어 살아나 그 육체들이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고, 메시아를 따라 천국까지 간다.’ 한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감탄하고, 자기도 그리되기를 원한다고 하며 그 말을 믿고 따른다. 그러나 그들이 늙을 때까지 그들이 믿는 대로 오지 않았고, 2000년이 더 지나갔는데도 그렇게는 안 이루어졌다.

7.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온다. 기다려라.” 했다. 고로 그 후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흔적도 없다. 선생도 어릴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너무 기다렸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수백 번을 읽어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온다는 메시아>도 ‘구약 주관권’이 아닌 ‘새 시대 신약 주관권’에서 태어난 자들 중의 한 사람을 보내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8. 하나님이 ‘허무맹랑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질서와 이치와 순리’만 말씀하신다. <질서와 이치와 순리>는 ‘신앙 세계’에서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생활’에서도 늘 이뤄져야 된다. <성경>도 ‘질서와 이치와 순리’대로 이뤄졌다.

9.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백만 년이 가도 안 이뤄진다. <비진리, 비원리, 비논리>는 안 된다. <해석을 잘못된 것>은 안 이뤄진다. 아이 엄마가 죽어서 장사했는데, 아이가 우니 “엄마는 좀 있다 온다.” 했다. 이것은 순리에 맞지 않으니, 안 이뤄진다. 아이가 크면서 다른 자들을 보고 깨닫는다. 성경에 <죽은 자가 다시 온다>는 논리는 이런 논리와 같다. <죽은 자의 육신이 살아나서 다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온다. 다른 시대 때, 그 시대에 태어난 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온다.

10. <북한>도 늘 “세상을 뒤집는다. 원자폭탄으로 남한을 멸한다. 곧 불바다로 만든다.” 하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한 지

가 60년이 넘었는데도 안 했다. 허황된 자들이다. 하나님은 ‘평화를 깨트리는 자나 민족’은 가만히 안 두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만 말씀하시고 순간 은밀히 행하신다.

11. 한 이단 종교는 나이가 90세가 되어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며 ‘허황된 말들’로 복음을 폄했다. 모두 거짓이며 허황된 말들이다. 결국 추종을 받던 자도 옥에서 심장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죽었다. 그때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5일 이상 두었지만, 살아날 수가 없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해가 하루에 두 번 뜨는 것과 같이 불가능하다. 그런 일은 아예 없다. 고로 그런 신앙은 다 파선되고 끝났다.

12. <성경에 있는 말씀>을 허황되게 풀면 이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망령되게 전했기에 심판을 받는다.

13.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무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무리다. 여기에 어서 들어와라.” 하는 자들의 말도 모두 ‘허황된 말’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구 세상에 6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 오셨는데 ‘14만 4천명’만 구원시켜서 되겠느냐. <14만 4천 무리>는 ‘상징적인 숫자’다. <구원자>가 다시 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이 ‘최고 마지막 휴거 역사’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허황된 말’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한 자들이다.

14. 숫자로 보면, 성경의 ‘한 때 두 때 반 때’도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6개월’로 풀어서 ‘3년 6개월’이 된다. <3년 6개월>을 ‘일’로 따지면 ‘1260일’이 되고, 여기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60년’이 된다. 하나님은 이같이 ‘확대, 축소’로 계산하여 역사를 이루셨다.

15. <14만 4천 무리>도 ‘한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자’다. 크게 보면 ‘1000년 왕국 혼인 잔치 기간’에 온 자들이고, 축소에 보면 ‘구원의 당세 기간’에 온 자들이다. <축소>로도 계산하고, <확대>로도 계산한다.

16. 선생이 중국에서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계2:10).” 하셨다. 그때는 중국의 명절인 노동절 때였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잡혔는데, 시대 주도 그러했다. 악한 자들의 거짓 행위로 인함이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0일이 지나도 안 끝나서 ‘연장되었나?’ 생각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 갖은 고통을 다 겪고 10개월이 돼야 모든 것이 다 끝나서 2008년 2월 초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1일>을 ‘한 달’ 혹은 ‘일 년’으로 확대해서 성경을 이룬다.

17. <14만 4천 무리>도 ‘한 기간’을 두고 메시아를 믿고 따르며 자기를 정결히 만들고 휴거된 자들이다. <시대 구원자>가 와서 휴거 역사를 펴기 전에는 ‘깨끗하다 하는 자들’이 절대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을 제대로 못 푸는데 깨끗하겠느냐. <구약인들>도 성경을 제대로 못 푸니,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느냐.

18.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도 ‘질서와 이치와 순리’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성경에 “한번 죽으면 육은 거기서 끝나고, 영은 세상에서 자기 육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계로 간다(히 9:27).” 하셨다. 다시 태어나기는 누가 다시 태어나느냐.

19. <구약>의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9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구약인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으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육신이 다시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고 한다. 그것이 아니다. 9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외치고 다니며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일부만 감질나게 외치고 다녔으나,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다. <사람이 죽고 다시 온다는 윤회설>은 없다. 다만, 다른 시대의 다른 자가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한다.

20. 세상에서 육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그 영이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문을 못 나온다. 삼위가 특별히 허락하시면, 영계에 가서 보기도 한다. 마치 세상 감옥에 가서 접견하듯 보고 온다. 지옥에 간 자들의 영을 보면, 다 불에 타서 알아보지를 못한다. 그들에게 말을 걸면, 피하고 숨는다. 계속 물으면, 자기가 세상에서 살 때의 이름을 댈다. 그때 누군지 안다. 그 영들의 몸에 쇠물이 흐르듯 무거운 땀이 흐르고 있다. 아예 안 본 것이 낫다. 보고 온 자들은 후유증으로 몇 달씩 그 광경이 보인다고 하며, 이제 지옥에 다시는 안 간다고 한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허락하시면 꿈으로도 지상영계나 흑암 세계에 가 볼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늪지대에 수백 명이 빠져서 계속 흙탕물을 먹고 있다. 그 깊이가 5m, 10m, 점점 깊어졌다. 이곳의 영들은 세상에서 육신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 자기 주관대로 살아간 자들, 하나님과 주를 믿었어도 가식으로 믿는 자들이었다. 영들이 어떻게 그 세계로 가는지 보니, 처음에는 ‘영’이 빛 가운데 있다가 한 발자국씩 어둠 쪽으로 갔다. 길이 아닌 곳으로 하루 조금씩 가고 있었다. 자기는 거기로 가기 싫는데 ‘육’이 세상에서 행하는 대로 조금씩 가고 있었다. 영들은 앞에 가는 자들이 늪지대에 빠져 소리를 지르니, 그것을 보며 두려워했다. 그 길을 가던 영들 중에 어떤 영은 조금씩 뒤로 돌아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 육이 보이는데, 기도하고 전도하며 다니고 있었다. 혼이나 영이 자기 입장을 꿈으로 육에게 전해 준 것 같았다. <육>이 ‘자기 혼과 영의 운명’을 좌우했다.

22. 영계에 가 보면, 혼이나 영들도 서로 싸운다. 한번은 내 혼이 어떤 영을 기어이 쫓아가서 결국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쳤다. 그러니 넘어져서 두려워했다. 내 혼을 괴롭히고, 섭리사 사람들의 영을 괴롭게 한 사탄이었다. 내가 기어이 잡아 내려치니, 결국 불구가 되어 기어갔다. 자기 혼과 영을 위해 ‘육’이 강하게 기도해 주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

23. 지옥이나 악한 영계에 가서 보면, 그들은 ‘구경 간 자’를 못 본다. <그 세계를 보러 간 자>만 그들을 본다. 가서 보면, 영들이 ‘짐승’이 되어 섬뜩한 형체로 다니고, 피골상접하여 다닌다. 어떤 영은 할머니, 할아버지같이 늙어서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 되어 다닌다. 그 육신은 젊은데, 섭리사를 나간 자다. 그 영에게 직접 가서 만나면, 숨거나 피한다. 어떤 영은 육신이 교회를 잘 다녔을 때처럼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 괴로워했다. 어떤 영은 키가 큰데 피골상접하니 말라서 무서운 형체로 다닌다. 가서 보면, 본체만체하고 다닌다. 육의 근성 그대로 영이 형성돼서 그러하다. 고집도 세고 교만했다. 지상영계에서 다니고 있었다. 영들을 보고 오면, 육을 전도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은 ‘영’을 보시고 택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육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24. 한번은 한 별판에 갔는데, 황막한 곳에 5~6명의 사람들이 쇠고랑에 묶여 있었다. 그중에 아는 자도 있었다. 섭리 사람이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마음을 돌린 자였다. 내가 기도해 주고 있는 자의 영이었다. 모르는 자들의 영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흉측했다. 그중 한 명을 쇠고랑에서 끊어 주고 당기니, 끈끈이에 파리가 붙듯 몸이 붙어서 안 떨어졌다. 내가 손을 대니, 내 손도 붙었다. 결국 온갖 힘을 다해서 내 손을 떼고, 그 영을 잡아당겼다. 그도 거기서 계속 나오려고 했다. 결국 거기서 떨어져서 데리고 나왔다. 그러고서 기도하고 그에게 편지를 해 줬다. 그러니 바로 답장이 왔다. 편지 내용을 보니, 다시 마음을 먹고 잘하겠다고 했다. 그 끈끈이는 ‘이성의 끈끈이’였다. <이성 사고>의 문제였다. 이외에도 많고 많다. 모두 자기 육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하며 ‘혼과 영’을 관리해라.

25. 한번은 ‘우상의 영들’을 보니, 사망 지옥의 강렬한 불구덩이 옆에서 모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거기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를 섬기게 한 자들이다. 그 영들이 세상에 와서 제발 자기를 섬기지 말라고 말을 못 해 준다. 울 수가 없다.

26. 성경의 한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안 섬겨서 여기에 왔다고 하며, 자기 자녀들은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전해 달라고 했다. 이에 하나님은 “절대 안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수십 번씩 전해 줘도 똑같이 안 믿는다.” 했다. 그러니 그 부자는 ‘자기 마음과 육신의 행위로 이곳에 왔구나.’ 하고 시인했다. 모두 꿈에서 자기 혼을 보아라. 기도하고 행하며 자기 혼의 형체를 좋게 만들어라. 또 자기 영을 보여 달라고 간구해라. 특히 섭리사에서 이탈된 자들이나 시험에 들어 제 생각대로 하는 자들이다.

27. <육의 행실>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함으로 <육>도 <혼>도 <영>도 주 그리스도 앞에 흠 없이 하여라.

28. <천국>에는 깨끗해야 간다. 땅에서 자기 육의 행위로 좌우된다.

<2018년 3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영계에서 ‘섭리사를 나간 자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다닌다. 1. <행하는 것>이 ‘능력’이다.

2. <밥>을 먹는 것만 ‘배부른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받듯이, <기쁨과 흥분의

느낌>도 ‘남녀의 성적인 행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다. <뇌로 흥분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며 행하면, 어떤 것을 해도 기쁘고 흥분된다.

3. <뇌의 흥분>은 ‘엔도르핀의 흥분’이다. <기쁜 것>을 생각만 해도 흥분되어 엔도르핀이 솟는다. 반면, 화를 내면 엔도르핀이 ‘분노와 혈기’로 변질되어 솟는다. 그러면 뇌신경이 분노와 혈기로 굳어지고 파괴되어, 자기 생각대로 분노와 혈기가 조절이 안 된다. <운전대>로 차를 조종하듯 ‘뇌, 생각’으로 조종하는데, <분노와 혈기>로 인해 ‘뇌신경’이 파괴됐으니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격이다. <고장 난 차>는 묶어 놔야 되듯, <분노와 혈기로 뇌신경이 굳고, 파괴된 자>는 몸을 묶어 놔야 된다.

4. <기쁨과 흥분의 일들>은 기도, 찬양, 전도, 관리 등 하나님께 속한 일 하기, 작품 만들기, 운동하기, 자기 책임 분담의 일 하기 등 수백 가지가 있다. 자기가 좋아서 기뻐 행하면, <뇌>는 늘 흥분되어 마치 남녀가 사랑을 느끼듯 느낀다.

5. <각종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을 각종으로 느끼듯이, <육신>도 행하는 대로 각종으로 느낀다.

6. <육체>는 ‘확대한 뇌 과일’이다. 육신이 행하면, 그 신경이 ‘뇌’에 연결되어 뇌가 느끼고, 호르몬이 분비돼서 온몸을 돈다. 고로 육신이 행하는 대로 뇌에서도 계속 느낀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의 근본 이치’다.

7. <뇌를 잘 사용하는 자>는 다양하게 얻고, 100배나 더 얻고 누린다.

8. <뇌가 느끼는 것>과 <이성 흥분으로 느끼는 것>은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이성 흥분으로 느끼는 것>은 ‘뇌신경 덩이’ 중에 ‘한 가닥’으로 느끼는 정도다.

9. <뇌>가 흥분되어 일하면, 그로 인해 ‘각종 삶의 세계’를 얻는다. <영적인 일>을 하면, ‘영원한 것, 육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는다. <육의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육신과 함께 행하여 얻게 하신다.

10. <뇌 과일을 사용하는 자들>은 생활할 때나 일을 할 때나 거리를 걸을 때나 ‘뇌 흥분, 마음 흥분’이 되어 산다. 고로 종일 일하면, 일을 한 대로 얻는다. 그러나 <육적인 이성 관계>는 일을 할 때도, 거리를 다닐 때도 못 한다.

11. 사람들은 흔히 “왜 결혼도 안 하고, 아깝게 사랑을 안 하고 살지?” 한다. 이는 “밥을 안 먹고 무슨 맛으로 살지?” 하는 격이다. <밥>을 안 먹어도 그 외에 3000가지 음식이 있다.

12. <뇌>가 발달되면, 뇌로 인해 느끼는 희열과 기쁨과 흥분을 ‘이성 사랑으로 느끼는 것’보다 천 배 이상 느끼고 누린다. 황금성 천국에 가서 구경해 보아라. <육적 이성 사랑>으로는 그같이 전혀 못 느끼고, 아예 불가능하다. <영>은 온몸이 ‘뇌 덩이, 신경 덩이’다. 고로 몸 전체가 느낀다.

13. <육적 이성 사랑>은 ‘한 사람’을 쳐다보는 격이고, <뇌 사랑, 영적 사랑>은 ‘수조 배 크고 다양한 것’을 보는 격이다.

14. <황금성 천국>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 관계를 할 때 느끼듯, 보면 느낀다. 수백만 가지로 느낀다. 영원한 기쁨과 흥분 거리다. 무조건 <황금성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느낌 속에는 ‘이성 사랑으로 느끼는 것’도 다 들어 있다. <음식 맛> 속에 ‘밥맛’도 다 들어 있는 격이다.

15. 인간이 마약, 환각제, 흥분제를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사랑해도, 하나님은 그럴 줄 아시고 ‘이성으로 느끼는 신경’은 한계를 두고 작게 만들어 놓으셨다. <금덩이>로 말하면, <뇌신경>은 ‘금 2000돈’ 정도 크기로 만드셨고, <이성 신경>은 ‘금 한 돈’ 정도 크기로 만드셨다.<이성 신경>은 마치 <금 한 돈>으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사랑할 때 ‘사랑 표시’로 손가락 하나에 끼는 정도와 같다. 고로 <이성 신경>으로 느끼면 ‘손가락 하나’ 정도로 느끼듯 하고, <뇌신경>으로 느끼면 ‘몸 전체’로 느끼듯 한다.

16.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뇌>로 영적인 것도, 혼적인 것도, 마음과 생각도 다 느끼도록

‘금 2000돈’같이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창조 목적도, 사랑 휴거도 이루게 됐다. 이것을 모르고 성장기 때 미디어, 인터넷, 음란물 등 각종 이성에 속한 것에 빠져 사나, 모두 ‘소꿉장난 사랑’에 불과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성에 속해 사는 자들은 차원이 낮으니, 일반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끼리끼리 뭉쳐서 살게 된다. 그 시간에 ‘영을 위해 사는 삶’을 살고, 휴거되어 영원한 길을 가야 된다.

17. 영계에서 <육적 이성 사랑에 빠져 사는 자>의 상황을 보니, 사탄 네 명이 그 생명을 잡고 아예 못 움직이게 하고 다녔다. 그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다. 이성에 빠져 사나, 사탄에게 붙잡혀 자기 마음대로 못 하고 다니는 것이었다. <주>와 <그 무리들>이 도와줘서 거기서 나오는 자도 있다. 그런데 싫다고 거부하면, 절대 거기서 못 나온다.

18. <뇌>를 가지고 기쁨과 흥분으로 행함으로 ‘육’을 개발하여 자기 육과 혼과 영이 잘되는 데 쓰고, 삼위와 사랑하며 영적으로 사는 데 써라.

19. <뇌>를 육적으로만 쓰면, ‘뇌 자체 능력’의 10%, 혹은 1%만 쓰는 정도다. 왜 <뇌의 능력>의 십 분의 일, 백 분의 일밖에 못 쓸까? 하나님은 ‘영’을 영원히 구원받고 살라고 <뇌의 능력>의 90% 이상을 ‘영적’으로 쓰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뇌>를 ‘영적’으로 쓰면, 삼위와 주와 같이 행하며 자기 뇌를 100% 쓰고, 영도 구원받고, 황금성 천국까지 가게 된다.

20. <자기 영>이 ‘휴거 1000선’까지 가는 자는 뇌의 잠재 능력까지 100% 쓰는 자다.

21. <육적인 일>만 해서는 차원이 낮아서 뇌를 쓸 곳이 없다. <영적>으로 ‘최첨단’으로 써야 된다. 곧 <삼위의 구상>에 따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를 통해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다.

22.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일의 양>이나 <무게>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힘도, 시간도 들어간다. 이같이 <뇌의 잠재 능력>도 ‘일의 차원’이 높아야 그만큼 크게 쓰게 된다. <육적>으로 쓰면, ‘낮은 차원의 능력’만 쓰게 된다. <영적>으로 써야, ‘고차원의 능력’까지 쓰게 된다. 아예 삼위와 주와 함께 ‘신적 차원’으로 써야 ‘최고 단계’까지 쓰게 된다. ◎ 이어지는 <신경>에 대한 말씀은 내일 새벽에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3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육>은 사랑으로 흥분될 때 몸에서 흥분액이 나온다. <영적>으로 ‘삼위와 최첨단의 사랑’을 하면, 영적으로 기뻐 흥분되어 엔도르핀이 솟는다. 삼위와 늘 사랑하며 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 영이 변화되어 ‘온전한 신부의 형제’를 이루고, ‘황금성 천국’으로 휴거되어 간다.

2. 하나님은 모두 ‘상대성 이치’로 창조하셨다. 근본은 ‘영’이다. <육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근본인 ‘영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성장기에 있는 자들, 차원을 높이지 못한 자들, 혹은 차원을 높인 자라도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자세히 여러 번 읽고 깨닫고 행하여라. 그러면 ‘육적인 길’을 벗어나고 ‘영적인 길’로 차원 높여 가게 된다.

3. <핵>을 말하면, <육>은 ‘이성 사랑의 극적인 기쁨과 흥분’으로 탄생된다. <영>은 ‘삼위와의 영적인 사랑’으로 기뻐 흥분돼야 그로 인해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신부의 영’으로 탄생된다. 그리고 계속 삼위와 사랑하며 신부로서 삶을 살면, ‘황금성 천국의 영’으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혼>도 신부의 형제로 변화되고, <육>도 변화되어 땅에서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4. <휴거 기간>은 ‘주가 살아 있는 당세’까지다. <신부급 시대>는 1000년 동안 간다. 이때는 ‘휴거된 영’이 아니고, ‘신부급 영’이 된다. <당세에 주를 맞고 휴거된 자들>은 마치 임금과 결혼한 ‘임금의 사랑의 대상인 왕비’와 같다. 그 이후에 1000년 성약역사 기간에 오는 자들은 ‘왕이 사랑하는 자들’과 같다. 당세 때 주를 보고 믿고 따르며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그리 크다.

5. <왕의 사랑의 대상, 왕비>는 ‘왕과 부부 일체’다. <하나의 여왕>이다. <여왕 취급을 받는 자들>이 ‘당세에 주를 믿

고 따른 자들'이다. <왕이 죽고 난 후에 따른 자들>은 '왕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니 역시 '왕이 사랑하는 자' 취급을 받는다.

6. <당세>는 '휴거 기간'으로 '삼위와 주 앞에 왕비가 되는 기간'이다. <왕 같은 제사장 시대>다. 주가 세상을 떠나면, '일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산다. 이 기간이 1000년이다. 그러니 당세 때 태어나고도 제대로 못 하면, '왕 같은 제사장'도 못 되고, '왕비'도 못 되고, '주가 죽고 나서 따른 일반 신부'같이 된다. <일반 신부>가 되면, 후대 사람들이 "왜 당신은 당세 때 살고도 '왕 같은 제사장'도 못 되고, '왕비'도 못 됐느냐?" 하고 모두 이야기한다. 고로 "먹고 살려고 돈 버느라 못 했다. 세상 사랑을 하고, 육적 사랑을 하고, 체면 없이 인터넷으로 이성과 채팅하고, 음란물을 보느라 그리 뻘뻘했다." 하면, "정말 가치 없이 살았네. 제정신으로 안 살았구나." 한다.

7. <휴거된 영>을 보면, '자기가 쌓은 공적들'을 면류관이나 자기 옷에 황금 보석으로 표를 내고 다닌다. 또 얼굴에 그 공적들을 담고 다녀서, 얼굴을 보면 빛에 쌓여 해같이 빛을 낸다.

8. <후대들>은 직접 말씀을 못 들으니, '글'로 써 놓고 간다. 실감 있게 써 놓으니 글을 보면 되고, 얼굴은 '화면'으로 남긴 것을 보면 된다. <당세>와 <후대>를 위해 '말씀'을 쓴다.

9. <육체의 기쁨과 각종 성적 흥분>은 극단적인 마약이나 환각제, 흥분제 등 화학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수백 가지의 흥분제가 있다. <육적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고,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며 '영적인 것'도 깨닫게 해 준다. 모르거나 자기 주관과 사고가 잘못 인식되어 있으면, 평생 그렇게 '비논리'로 안다. 그러니 극단적인 마약을 먹고, 각종 화학 물질을 먹고, 주사도 맞고 한다. <흥분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음식>도 '흥분제'다. <하나님의 순리의 흥분제>다. 그 가짓수대로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 어떤 음식의 달인은 700가지의 음식도 만든다. 세상 각종 음식을 다 합하면, 3000가지가 넘는다. 감자 하나만 해도 40가지의 음식을 만든다. 이같이 <기쁨의 흥분제>가 '음식'만 해도 3000가지가 넘는다. 이를 알고 먹으면 기쁨으로 흥분되지만, 모르고 먹으면 별로다. 가령 자기가 <뱀장어탕>을 먹으면 기뻐 흥분된다고 하자. 그런데 <뱀장어탕>을 먹으면서도 모르고 '추어탕'으로만 인식하고 먹었다 하자. 그러면 음식 맛이 '추어탕 맛'으로 느껴지고, 기쁘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는다. 이같이 '자기 생각과 인식'으로 좌우된다.

10. <생각>으로 기쁘고, 흥분도 되고, 천국도 된다. <마음과 생각>은 '극적인 기쁨의 흥분제'다.

11. 성경에 "네 마음 천국이다. 생각대로 기쁘고 흥분된다." 하였다. <마음과 생각>은 '수만 가지의 기쁨의 흥분제'다.

12. <말>도 기쁘게 하는 흥분제다. 말하기에 따라 그 면에서 기뻐 흥분된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이성 이야기를 하면, 이성으로 흥분된다. 수십만 명씩, 수백만 명씩 그리한다. 서로 만나서 '말'로 이성 이야기를 하면, 그쪽으로 기뻐 흥분된다. <말 흥분제>, <글 흥분제>, <사진 흥분제>, <몸 흥분제> 가지고 흥분시킨다.

13. <황금성 천국 이야기>를 하면, 뇌가 '영적'으로 기뻐 흥분된다. <기분 나쁜 말>을 하면, 화로 울분하고 혈기가 나면서 기분 나쁘게 흥분된다.

14. <강의>를 잘하면, 기뻐 흥분되어 자꾸 더 전해 달라고 한다. 못하면, 그만 끝내라고 한다. 설교나 강의를 할 때 소리를 크게 지르며 극단적으로 하면, 오히려 <뇌 흥분>이 변질되어 지루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그러면 계시를 받아 좋은 말씀을 전해 줬는데도 안 듣고 그냥 간다. 물건은 좋은데, 소리를 지르며 사라고 하면 값이 헐해도 안 사고 그냥 간다. 설교나 강의를 할 때 부드럽게 해라. <삼위의 사랑>은 물같이 부드럽다. 부드러워도, '강한 돌'이 깎인다. <월명동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말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기뻐 흥분된다. 그 외에도 <각종 일들>이 '기쁨의 흥분제'다. 찬양, 기도, 봉사, 희생, 교회 청소, 회개, 차원 높이는 삶 살기, 완전하게 일하기, 월명동 작업 등이다. <월명동 폭포수 작업>도 다 했으니, '일을 다 한 성취의 기쁨과 흥분'이다. <같이 작업한 자들>도, <주와 일체 되어 신경 쓴 자들>도 다 완성했다고 하며 너무 기쁘다고 한다. 같이 하면, '자기 것'이 되니 기뻐 흥분된다. 모두 기도하고, 돕고, 삼위도 주도 함께하시어 사고도 안 나고 다 끝냈다. <할 일>을 다 했으니, 한 것을 보면서 계속 기쁨과 흥분이다.

15. <교회를 산 자들>은 늘 기뻐 흥분되어 영광을 돌린다. <교회를 사려고 희망하는 자들>은 '희망'으로 기뻐 흥분한다.

16. 각종 작품들을 사는 것도, 각종 일들을 하는 것도 수백 가지가 다 ‘기쁨의 흥분제’다.

17. <시대 글을 쓰는 일>도, <삼위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자기를 휴거시키는 일을 하는 것>도 모두 ‘기쁨의 흥분제’다.

18. 삼위와 주와 대화하고 교통하면, ‘기쁨과 흥분의 맛’이 완전히 다르다. 고로 <새 노래>에도 가사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넣었다. 모두 ‘기쁨의 흥분제’다.

19. <뇌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는 그 작은 이성 하나만 생각한다. 그러니 <영>이 변화도 안 되고, 키도 작다. 섭리사에서 10년 된 자도 육은 큰데, 영을 보니 정말 작았다. 다른 자들은 영의 키가 180cm, 185cm인데, 육에 속해 ‘이성’으로만 기뻐 흥분되어 사니 영의 키가 160cm 정도 됐다.

20. <흥분제>는 ‘마약’이나 ‘화학 물질’만이 아니다. 이것들은 극단적으로, 억지로 기뻐하게 한다. <그림의 떡>인데 ‘환각과 착시’로 ‘실제’처럼 보게 한다. 그러니 ‘그림의 떡’을 집어먹고 배부르다고 한다. 깨서 보면, 몸은 말라 있다. 또 뇌에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신경이 둔감해졌다. 고로 평소에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느끼는 기쁨과 흥분’이 안 느껴지고, 멍하고 둔감하다. 마음도, 생각도, 육도 흐리멍덩하다. <기쁨과 흥분 신경>에 골병이 들어 인생을 살아간다. 고로 성령님께서 당세에도, 후대에도 모두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제대로 인식하고 행하게 하도록 <신경>에 대해 이야기해주라고 하시어 이 말씀을 전한다.

<2018년 3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육>이 더러운 것은 ‘혼’으로도 더럽게 보이시고,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보이시고, 위험한 것은 위험하게 보이신다.

2. <육에 해당되는 숫자>는 ‘혼’으로도 같은 숫자로 보이시니, <육>으로 보인 횟수와 <혼>으로 보인 횟수는 동일하다.

3. <육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다르니, <육의 행위>와 <혼의 행위>는 상황을 달리 보여서 깨닫게 하신다.

4. <혼의 세계>가 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혼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세밀한 존재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5. <자기 육신>은 ‘집’으로 비유하여 보인다.<육신의 처지나 환경, 행한 것>에 따라 ‘집’이 크거나 작게, 좋거나 나쁘게 보이고, 깨끗하거나 단장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

6. <자기>를 ‘집’으로 비유하여 보이되, 육신이 생시에 행한 종목별로 각각 그 실상을 보인다.

7. <육신>이 좋은 집에 산다고 혼의 세계에서 ‘혼’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은 아니다. <자기 육신의 행위>대로 보이고 깨닫게 하신다.

8. <하나님의 의>를 중심하여 행한 모든 ‘육의 행위’가 영의 세계에서 실상으로 보인다.

9. <육신에 속한 이방인들>은 ‘영에 속해 사는 자들’과 개념과 사고가 다르니, 육에 처해 생각하고 사고하는 대로 보인다.

10. <동일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보이시며 두 가지,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11. <생시>에서도, <꿈>에서도 ‘그에 해당되는 만물과 사람’을 보여 깨닫게 하신다. 고로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보이면, 자기가 ‘자기 행위’와 연결시켜 깨닫는 것이다.

12. <나뭇가지>는 ‘가지’가 크며 뻗어 나가고, <나무>는 ‘둥치’가 크며 뻗어 나간다. <나무>는 ‘영’이요, <나뭇가지>는 ‘혼’과 같다.
13. <큰 것, 나무둥치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해 주시어 뻗어 나가고, <자기 생활에 속한 나뭇가지와 같은 삶>은 ‘자기 행위’로 뻗어 나간다.
14. <큰일들>은 ‘삼위’가 해 주시지만, <작은 일들>은 생활에서 ‘자기’가 해야 된다. 이는 <나무>는 ‘둥치’가 크며 뻗어 나가지만, <나뭇가지>는 ‘가지’가 뻗어 나가는 이치와 같다.
15. 누구든지 잘하면 잘되고, 못하면 안된다. 그러니 항상 잘해서 ‘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라.
16. 잘할수록 잘해지고, 못할수록 못하게 된다.
17. <자기 생활에 속한 나뭇가지와 같은 삶>은 자기가 하는 대로 뻗어 나가니, ‘모순과 불의의 나뭇가지’는 자르고 ‘좋은 나뭇가지, 의의 나뭇가지’를 키워라. 그래야 ‘좋은 나뭇가지, 의의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 아름답게 된다.
18. 하루를 살아도 ‘잘하고자 하는 때’만 잘하며 살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는 잘 안 된다. 잘 안 되니, 잘 산 표가 안 난다.
19. 자기가 하고자 하고, 세밀히 해야 잘된다.
20. <자기 욕>도, <자기 삶>도 그냥 두면 ‘강가의 모래알’이 자꾸 떠내려가듯 한다.
21. <자기 욕>도, <자기 삶>도 그냥 두고서 ‘잘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 운전하듯 늘 자기 욕신도, 마음과 생각도 잡고 행해야 된다.
22. 사람은 ‘느낌’이 좋으면 하고, ‘느낌’이 나쁘면 안 한다. 이는 음식이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는 격이다. <몸>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한다. 이같이 <삶>도 그러하다. 자기가 보기에 좋고, 느낌이 좋으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꾸 하며 살아가나, 어떤 것은 ‘불의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고로 늘 주 안에서 행하고, 삼위의 뜻과 생각 안에서 행해라.
23. 인생 앞에는 <사망길>과 <생명길>이 있다. 그 길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가게 된다.
24. <하나님의 법>은 욕도 영도 축복을 받게 하고, 영은 영원히 빛의 세계에 존재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은 ‘사망’이 같이 있지를 못한다.
25. 저마다 <자기 것>은 ‘자기’가 행해야 된다. <자기 것>이면, 근본은 자기가 해야지, 남이 못 해 준다.
26. <빛의 세계, 의의 세계의 것>은 많이 해도 많이 한 표가 안 나지만, <어둠의 세계, 불의의 세계의 것>은 조금만 해도 표가 많이 난다. <어둠>은 ‘모순과 악’이니, 조금만 해도 과도하게 더 표가 난다.
27. <의>는 많이 행해도 별로 표가 안 나고, <죄와 불의>는 순간 잘못해도 표가 많이 나는 이유는, <죄와 불의>는 조금만 해도 그로 인해 더 많은 해를 주기 때문이다.
28. <죄와 불의>는 마치 ‘미인의 얼굴에 묻은 티’와 같아서, 작아도 크게 보이고 표가 많이 난다.
29. <욕신>이 땅에서 먹고 살면서 평생 ‘자기 영’을 아름답고 의롭게 만들기다. <최고의 영>으로 만들기다. 이것을 한 자는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 영원한 성공을 한 자’다.

30. <육을 위해 산 것>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만사의 모든 것도 끝난다.

31. <자기 성과 혼>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공적’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변화를 이루고 ‘황금 성 천국’에서 받게 된다.

32.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신 평생, 영 영원토록 따라다니며 해를 준다. 회개하고,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라.

33. <작은 죄>라도 가소롭게 보지 말고 ‘병’으로 보고 즉시 치료하듯 회개하여 없애고, 혹은 ‘몸에 들어온 죽음의 해충, 벌레, 진드기’로 보고 즉시 잡아 없애듯 회개하여 없애야 된다.

<2018년 3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고통>이 끝나면, 그것이 후에는 ‘기념’이 되느니라.

2. 거울이 더러워지면 안 보이듯, <죄와 불의>로 인해 더러워지면 ‘의로운 것’이 빛이 안 나느니라.

3. 빛을 가리면 빛을 내지 못하듯, <죄와 불의와 모순>으로 인해 ‘자기 빛’을 가리면 ‘자기 빛’을 내지 못하니, 그러므로 늘 깨끗이 해야 되느니라.

4. 사람이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못하면 그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나니, 그러므로 100% 온전히 잘해야 되느니라.

5. 사람이 많은 지체 중에 ‘한 지체’만 아파도 그것을 위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나니, <신앙의 세계>도 그러하니라.

6. 포식하는 동물들은 ‘한 가지 약점’을 보고 사냥하여 잡아먹느니라. 이같이 사탄들도 그러하고, 세상에서도 그러하니라.

7. 모든 것을 못해도 ‘한 가지’를 잘해서 그로 인해 성공하고 잘되기도 하나니, 모든 이치를 깨닫고 지혜롭게 할지이다.

8. 만물이나 사람이나 ‘한계선’을 넘으면, 다른 세계이니라. 고로 그 세계에 처해 행하고 살게 될지니라.

9. <선(善)>을 넘으면 ‘악의 세계’이고, <악>을 넘으면 ‘선의 세계’이니라.

10. <육지>를 넘으면 ‘바다’요, <바다>를 넘으면 ‘육지’니라.

11. 더 좋은 세계에 가려면, 저마다 차원을 높여야 되느니라.

12. 하나님은 ‘한계’를 정하사, 그 안에는 ‘해당되는 자’만 살게 하셨느니라. 자기가 원하여 더 행하고 간구해야 ‘자기 한계,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 ‘하나님의 주관권’에 살게 되느니라.

13. <자기 한계>는 ‘예정’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잘되기도 하고, 스스로 망하기도 하느니라.

14. 어떤 자는 자기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세계에 처해 살면서 ‘하나님의 예정이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하며 더 행하지 않나니, 이런 자들은 ‘자기 무지’로 생각과 관념을 묶어 맨 자들이니라.

15.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자기 백성이니, 무한히 잘되기를 예정해 놓으셨느니라.

16. <불의와 악>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고로, <불의와 악>을 행하면 스스로 망하고 ‘정한 육신의 법과 하늘의 법’으로 인해 그 대가를 받나니, 고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느니라.
17. 저마다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의’ 안에서 무한히 행할 일이 많고, 무한히 얻을 것이 많나니, <행한 자>만 얻고 보고 누리느니라.
18. <사람의 생각>과 <전능자의 생각>을 아는 자가 누구리요. 곧 <행하는 자>니라.
19.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온전한 신의 존재자’이시니라. 삼위를 믿고 사랑하며, 시대마다 보낸 구원자를 믿고 사랑해야 그로 인해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리로다. 그러지 않고 우상이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느니라.
20. <영원하신 사랑의 본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영원히 큰 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생명길’을 못 가고 ‘자기 행위의 길’을 가게 되어 ‘사망의 세계’로 가느니라.
21. 사람에게 <지옥에 가는 예정>은 없으되 <천국에 가는 예정>만은 있나니, ‘천국에 가게 예정’되었어도 저마다 그 예정대로 해야 할 책임을 해야 가게 되느니라.
22. <정결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가 누구리요. 자기 영과 혼을 사망에서 구하는 자들이로다.
23.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뜻’도, ‘영의 온전한 세계’도 모르느니라.
24. 힘이 있어도, 원해도, 알지 못하면 행할 수가 없느니라.
25. 인생들, 알기 전까지는 너무도 모르고 살고 있나니, ‘알 때’에야 비로소 자기 무지를 알게 되느니라.
26. <아는 자>를 ‘신’이라 하였나니, <영의 세계를 아는 자>를 ‘신 같은 자다.’ 함이 마땅하니라.
27.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경에도 “신이다.” 하였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신’같이 살 수가 없나니,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고통을 받느니라.
28. 사람이 몰라서 사고도 나고 다치고 죽기도 하나니, 알았으면 그같이 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29. <무지>는 ‘사망’이니라.
30.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이요, <아는 것을 행하는 자>가 ‘복을 얻는 자’니라.
31.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알고 믿고 행하기 전까지는 ‘사망’이 왕 노릇을 하나니, 알고 행하면 ‘사망’을 벗어나리라.
32. <보낸 구원자>를 알고 행했든지, 모르고 행했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선악 간에 받느니라.
33. 매일 배워야 들은 것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나니, 너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라.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배워야 알게 되느니라.
34. <하나님을 배우고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멀리하니, 이는 그 생각이 ‘소경’인 연고니라. 배우고 알면, 생각의 눈이 떠지니 과거 소경이었던 자신을 깨닫게 될지니라.

35. <보낸 자>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시대 뜻’을 알지 못하니, 그 역시 ‘소경들’이로다. 배우고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예전에 소경이었음을 알게 되니라.

36.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할 일에 눈을 뜨고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이 예전에 이 일에 있어서 소경이었음을 알게 되니라. 고로 그때는 ‘자신이 소경되었던 때’를 시인하느니라.

37. <산>도 더 올라야 ‘주관권’이 달라져서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나니, <인생>도 <영>도 <육>도 그러하니라.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3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생각>은 ‘그 실체’와 다를 때가 많나니, 고로 문제도 생기고, 해도 받고, 다치고, 고생도 하며, 죽기까지 하노라. 고로 <생각>을 확인하고, 항상 잘해야 되느니라.

2. 속담에 이르기를 “<귀 장사> 하지 말고, <눈 장사> 해라.” 하였건만, ‘눈 장사’를 해도 속여 보이니 거기에 속는 자들이 있느니라. <속여 보이는 것을 아는 자>는 ‘겉’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이는 쪼개 보고 까 보고 ‘속’을 보기 때문이니라.

3. 사람은 그때는 잘해도 상황이 바뀌고 불리해지면 해를 받지 않으려고 ‘가을이 되면 색이 변하는 낙엽활엽수’같이 변하니, 변할 것까지 알고 한계를 두고 대해야 하느니라.

4. 사람은 ‘뇌의 현상’과 ‘몸의 현상’대로 반응하니, 더우면 뇌도 몸도 ‘찬 곳’을 원해서 그쪽으로 가고, 추우면 뇌도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뀌어 ‘더운 곳’으로 가는지라. 이같이 <사람의 뇌>도, <몸>도, <마음>도 ‘철새’ 같으니, 이를 알고 대하는 자는 화를 받지 아니하리라.

5. <나무>도 ‘침엽수’와 ‘활엽수’는 다르나니, <상록수>는 더워도 눈보라가 쳐도 ‘타고난 존재’가 변하지 않듯이 사람도 그러하니라.

6. <낙엽이 지는 나무>는 여름 내내 주인께 청정함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어도, 가을이 되면 색이 변하니 ‘내가 왜 내가 했던 맹세를 못 지키고 이러지?’ 하는지라. 이는 그렇게 타고나서 그러하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늘 문제가 되고, 자기를 한탄하리로다.

7. <나무>도 분별하여 계절을 생각하고 대함이 ‘지혜’니라.

8.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때에 따라 마음이 요리조리 변하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하나님의 주관권’에 있어야 하느니라.

9. <악>은 ‘악’으로 변하고 <선>은 ‘선’으로 변하니, <악>은 ‘악한 자의 행함’이니라.

10. <선>이 변하여 ‘악’으로 가는 과정이 긴 것은, 점진적으로 <선>에서 ‘악’으로 가는 연고니라.

11. <악>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들’도 미워하니, 그로 인해 해를 받기 때문이니라. 고로 정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보낸 자와 함께 불살라 소각할 것이니라.

12. <악>은 ‘어둠’이요, <의>는 ‘빛’이니라. 고로 <악>을 행하면 ‘빛’에 의해 드러나니, 자기 행위를 숨길 수가 없느니라.

13.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성경의 예언>은 이미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지켜 행하신 고로, <때가 지난 것>은 ‘행할 자

들’을 통해 다 행하였느니라. 고로 <잔치에 함께 참석하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느니라. <믿고 따른 자>만 알고 ‘시대’가 증거하니, 행한 자들로 인해 시인하게 되리라.

14. 행하였어도 ‘생각의 소경들’은 알지 못하니, 이미 ‘때’가 지난 고로 더듬어 찾아서 알기도 어려우니라.

15. 하나님은 성경에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을 ‘1초’도 어김없이 하였느니라.

16. <해>가 떠도 ‘구름’에 가리면 보이지 않으나, 그 빛으로 인하여 ‘낮’이 된 것이니라.

17.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지구 세상에 행할 일들을 하셨어도, ‘생각과 인식이 다른 소경들’은 모르나니, ‘주를 기다리던 자들’이 몰랐어도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안 자들’을 데리고 행하였느니라.

18. <행한 자>만 ‘새 역사’에 와서 사나니, <시대>를 타고나면 그 시대를 좋아해 따라가므로 한 시대, 한 지역, 한 방에 살아도, 한 밥상에 있어도 ‘모르는 자들’은 알 수가 없느니라.

19. <초침>을 보고 계산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조급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나니, 고로 ‘시침’도 보고 ‘하루’를 보아라. <뇌와 생각>은 보는 대로 반응을 보이고 느끼고 생각하나니, 저마다 ‘보는 것’을 조절할지니라.

20. <실체>는 작게 보여도, 너희 ‘하나님의 것’이니 ‘큰 것’이니라. 고로 크게 생각하고 볼지어다.

21. 사람은 <자기 것>이 ‘타인 것’보다 더 크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생각에 따라 작게 보이기도 하나니, 이는 좋아하면 크게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게 보이는 것이니라.

22. <간교한 자들>은 ‘자기가 해를 받을 것’을 염려하여 앞에서는 거짓 증거를 하고 뒤에서는 자기들끼리 “잘했다.” 하며 서로 자랑삼아 말하나니, <거짓>은 ‘하나님과 주의 심판 거리’이니라. <올 때>는 보였으나 <갈 때>는 보이지 않나니, 사람들이 말하길 “주인이 베어 가 버렸다.” 하느니라.

23. 하나님은 ‘하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거울이 되게 하심이라.

24. <죽음에서 산 자들>은 생명을 더 귀히 보며 관리하고, 항상 조심하면서 귀히 쓰니라.

25. <죽음>은 경험 없이 오나니, 항상 수시로 조심할지니라.

26. <죽음>은 아주 하찮은 데서도 오나니, 작은 일에도 조심하며 항상 온전하게 행할지니라.

27. 겉보기에는 아름다웠으나 자세히 보니 ‘한 조각 마른 떡’이었나니, 물에 닿은 쪽만 불어서 크게 보인 것이니라.

28. <작은 것>은 초라하니 돋보기로 찍어 푸짐하게 돋보이게 하나, 보는 자들이 ‘실체’를 보면 “속았구나. 어리석었다.” 하리로다.

29. <두 개의 하얀 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막걸리로 만든 부푼 빵’이고, 다른 하나는 ‘깨끗한 물로 만든 빵’이라. 보기에는 ‘막걸리로 만든 부푼 빵’이 크고 좋아도, 먹기에는 ‘깨끗한 물로 만든 빵’이 더 좋을지니라. 이같이 <사람의 삶>도 두 가지의 빵같이 ‘부풀려서 사는 삶’이 있고, ‘원상 그대로 사는 삶’이 있나니 속지 말지어다.

30. <겉모양>과 <질>이 다른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 만든 것이니, 이는 ‘속이는 자들의 상술’이니라.

31. 모두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니, 각종으로 좋아하는 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보이느니라. 고로 <질>은 안 보이니, 속느니라.

32. <자기 것>은 ‘겉’도, ‘속’도, ‘모양’도, ‘질’도, ‘양’도 모두 보고 아름답게 하나니, <자기 것>은 속이지 않기 때문이 니라.

33. <간판>은 아름답고 큰데 <속>이 작으면 실망하나니, 오히려 손해이니라.

34. <사탄>은 항상 거짓되고 ‘빈 거죽’을 가지고 속이고 사람을 쓰고 속이나니, 항상 ‘사탄의 정체’를 깨닫고, 그 말을 깨닫고 행할지로다.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천하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2. <육의 세계>는 누가 해도 해야, 되게 되어 있다. 사람이 못 하면 만물이 해야, 되게 되어 있다.

3. <말>로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실천>이 따라야 ‘실체’가 된다.

4. 하나님도 ‘천지 만물 실체 세계’를 실체로 행하시어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행하시고, 다니면서 보시고 행하셨다.

5. <영의 세계>도 ‘영’이 행해야 되고, ‘육’이 행해야 그 행위대로 ‘실체’가 생긴다.

6.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때 ‘생각’으로 함께하시고, 실천할 때 ‘행실’로 함께하신다.

7. <말>로만 “해야지.” 하고 안 하니, 10년이 지나도 그냥 있었다. 하루는 “오늘 해야지.” 하고 행하니, 1분 만에 됐다.

8. <생각>과 <실천>은 딴 세상이다.

9.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좋고, <실천>하면 ‘몸’이 즐겁고 기쁘다.

10. 편하려고 몸을 놀리면, 결국 ‘몸 고생’한다.

11. <실천할 것>을 생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실천함>으로 ‘몸’을 편하게 한다.

12. 사람이 ‘실천’을 안 하면, 움직이는 재미만도 못하여 그보다 앞장서서 못 간다.

13. 하나님은 성령과 주와 함께 ‘실천자’에게 역사하신다.

14. <실천자>가 ‘주인’이 된다.

15. <새 역사>는 ‘마음’도, ‘몸’도 된다.

16.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는다.

17.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 모두 ‘실천해서 받는 것’이다.

18. 삼위께 가는 데에 ‘회개’가 그리도 중요하다. “깨끗하게 해 주니 회개해라.” 해도 안 하면, 삼위를 거스르니 삼위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으신다. <할 일을 못 한 것>이 ‘죄’다.

19. <황금성 천국 문>이 열려 있어도, ‘죄’를 지으면 못 들어간다. <회개>가 그리 중요하다.

20. 저마다 <그때마다 회개할 것>은 본인이 하되, 늘 ‘주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
21. <삼위>는 늘 대화의 문을 개방해 놓으시고 가까이하길 원하시나, <본인>이 안 하면 그 기회가 지나간다.
22. <삼위와 주와의 대화>가 그리도 중하다.
23. 삼위는 절대 ‘새 역사’를 중시하신다.
24. <관리>가 그리도 중하다. <불가능한 것>도 ‘관리’다.
25. <관리와 관심>은 마치 깨진 바가지를 때워서 물이 안 새게 하는 격이다.
26. <가시에 찔려서 우는 아이>도 가시를 빼 주고 치료해 주면, 금방 웃고 다친 것도 바로 낫는다.
27. 관리하면, 성공한다.
28. <다른 사람>도 관리하면서, ‘자기 관리’도 해야 된다.
29. <의사>가 ‘다른 환자들 관리’는 해 주면서 ‘자기 관리’는 안 하니, 지구 세상에 병으로 죽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 <신앙의 관리자>들도 그러하다.
30. <관리를 잘하는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다. ‘관리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31. <은혜 중의 권세 있는 은혜>가 ‘관리의 은혜’다.
32. 동물들도 ‘새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새끼들을 살린다.
33. 관리를 못 하면, ‘10년 동안 키운 자’라도 순간 잃게 된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우기>다. 키우면서 자기도 그와 함께 뭉쳐서 하면, 자기도 죽음에서 살게 된다. 이는 ‘두 겹 줄’이라 아주 튼튼하다.
34. 반드시 <주를 머리>로 삼고 안 하면, 사탄에게 패한다. <주>는 사탄을 이겼으니, 주가 머리가 되어 쓰기만 하면 이긴다.
35. <영상> <사탄>은 ‘주와 같이 오는지’ 본다. 제 머리를 가지고 혼자 오면, 바로 공격한다.
36. <영상> <주>를 앞세우고, <주>를 부르며 가라. 이는 ‘철갑으로 무장한 것’이다.
3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리라.
38. <보낸 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천군도 와서 함께한다.
39. <육의 눈>으로는 사탄이 안 보인다. 절대 안 보여도, 사탄은 ‘적’이니 늘 쫓아오고 해를 준다. 그러니 <영의 눈>으로 보아라.
40. <적이 돕는 것>은 없다. 도우면, ‘의인’이다. <사탄>은 늘 유인해서 해를 주고 죽이려 하니, ‘항상 경계’다.
41. 하나님을 부르면, ‘그 보낸 자’를 통해 공의롭게 행하신다. 또 즉시 ‘천군’을 보내시어 적들을 치신다. 그러니 늘 ‘자기 천군’도 부려라. 왜 안 쓰느냐.

42. <우군(友軍)>끼리 ‘하나’ 되어라. <하나>가 안 되면, 단체전에서 패한다.
43. <개인들>이 뭉쳐서 하나가 안 되면, 사탄이 잡아다 ‘생각 고문’을 한다. 그러면 늘 ‘사탄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
44. <신부>가 됐으면, 모두 하나 되어라. 화평해라. <사랑>으로 대하면, 자기에게도 크게 유익이 된다.
45. <영상> 산돼지도 ‘함께’ 잡아라. 그러고서 ‘함께’ 나눠라. 혼자서는 못 잡는다.
46. <새 역사>는 ‘우선권’이 있어서, 뭉치면 다 이긴다. 안 뭉쳐서 했을 때는 다 패하고, 고통을 겪었다.
47. <싸울 때>는 손, 발, 몸, 머리가 다 뭉쳐서 싸워야 이기듯이 ‘모든 개성의 사명자들’은 각 지체이니, 모두 뭉쳐서 싸워야 이긴다.
48. <영상> 화평으로 하나 되어 행해야 된다. <손>으로 안 하고 <발과 몸>으로만 하면, 패하게 된다.

<2018년 3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그 배경>에 있으니 그런 말씀도, 노래도 나온다.
2. <바다>에 있으면 ‘바다 이야기와 바다 노래’가 나오고, <산>에 있으면 ‘산 이야기와 산 노래’가 나오듯이 <환경>대로 보고, 느끼고,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르게 된다.
3. <옥>에 있어도 ‘하늘의 말’이 나온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4. 사람은 처한 대로 보고, 말하고, 행한다.
5. 사람은 주관받는 대로 보고, 말하고, 행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다 사랑해 줘도, 사람들은 그 받은 만큼 다 사랑하지를 못한다.
7. 한 차원 낮추면, <육>은 편한데, <영>은 불편하다. 한 차원 낮추면, <영광>이 크게 기운다.
8. <더 먹은 자>와 <그러지 않은 자>, <더 잠을 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는 겉으로는 별 표가 안 난다. 하지만 <안 먹고, 안 자고 더 행한 자>는 너무도 표가 난다.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소모품’과 같고, <일>은 ‘실체’와 같다. 고로 <일>은 행한 대로 존재하여 표가 난다.
9. 사람들은 ‘이성, 명성, 덕성’에 너무 희망을 두고 산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 헤엄쳐 가서 모두 누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희망이 무엇이나?’ 하고 또 다른 희망을 찾는 희망으로 살아간다.<희망>은 ‘영원한 희망, 영의 희망’이다. 헤엄쳐 갔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영원한 희망이다.
10. 옛날에는 인간이 50년 정도 살다 죽었다. 그때는 ‘오래 사는 것’이 희망이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100년 가까이 산다.
11. <영>은 영원히 산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영’을 만드셨으니, 전지전능하시다.
12.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들이 ‘100년’만 살고 그 영이 죽는다고 하면 아쉬워하시기에 아예 마음 놓고 걱정도, 미련도 없이 영원히 살게 ‘영’을 창조해 놓으셨다.

13.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늙는다. 고로 오래 살수록 더 늙어서 형체가 변하고, 희망이 늙는다.

14. <영의 세계>는 ‘어른’인 표는 나는데, 늙지를 않는다. 성장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 이는 ‘과일이 다 익은 상태, 최고 아름다운 상태’와 같다. 그와 같은 상태로 ‘영의 젊음’이 머물러 있다.

15. 하나님께 <영>이 어떻게 오래 사느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육>도 관리를 잘해야만 오래 살듯이, <영>도 ‘관리를 잘하는 영’이 영원히 산다.” 말씀하셨다.

16. <육>을 관리 못 하면 ‘육’이 사고 나서 죽거나, 병들어서 일찍 죽기도 하고, 건강관리가 안 되면 보통으로 살다가 죽듯이 <영>도 그러하다. <영>도 관리를 못 하면 죄로 병들고, 죄로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제 생각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며 사탄 주관으로 살면, 그 영이 ‘병들고 사고 나서 죽은 영’이 되어 악의 영계나 그 행위에 해당되는 영계로 간다. 이것이 ‘죽은 것’이다. <생명권에 있는 영>만 ‘살아 있다.’ 한다.

17. <사망권>에는 ‘극한 사망 지옥’도 있고, ‘음부, 무저갱’ 등 어두운 세계도 있고, 또 ‘지상영계’도 있다. 각종 수백 개의 지옥이 단계별로 있다.

18. <지옥>에 가면, 집도 없이 거지같이 노상에서 사는 영들이 많다. 갇은 고통 속에서 산다. 너무 고통을 받으니,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살았다고 볼 수가 없다. 고로 ‘죽은 영’으로 본다.

19. 세상에서도 사람이 살아 있어도 병으로 갇은 고통을 당하며 숨이나 쉴 정도면, 살았으나 ‘죽은 삶’으로 본다.

20. 병에 안 걸렸어도, 생활 속에서 갇은 고통을 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도 그 역시 살았으나 제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21. <영>이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권에서 벗어나서 사는 자들의 영을 보면, ‘사막 같은 광야’나 혹은 ‘깊은 사망과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서 짐승같이 살아간다. 그것은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사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들은 안 죽으니 아무런 낙도, 희망도, 평안도 없이 살아간다. 그 생각을 보면 기쁨, 사랑, 희망 중 단 한 가지도 없이 무의식으로 살아간다. 아예 안 사는 것이 낫다. 그런데 ‘영’이라 죽지도 못한다. 스스로 죽고 싶어도 자살도 못 한다. 그러니 살면서 ‘영을 제대로 구원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22. <생명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 가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입고, 즐기고, 기쁨과 사랑과 희망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산 것’이다. <숨만 쉬는 것>이 ‘산 것’이 아니다. <자기 영체>와 <사는 환경>이 갖춰져 있고,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야 ‘산 것’이다.

23.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들>이 천국에 와서 ‘환경’만 보며 좋아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즐거 행할 일들’도 같이 겪으며 거기에 해당되는 각종 기쁨과 사랑으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라, ‘세상에서 육이 사는 생각’으로는 제대로 살 수가 없다.

24.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돼야 된다.

25. <관리>를 잘해야 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그 생각대로 해야 <영>이 변화되어 예뻐지고, 젊어지고, 안 늙는다.

27. 세상에서도 <육>을 관리하는 대로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젊어지듯이 <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닮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더 예쁘고 아름답게 되고, 늙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기에 따라 ‘영의 변화’가 좌우된다.

28. <지상영계>에 가면, 육계와 같이 ‘영’도 나이를 먹고 늙는다.

29. 전능하신 삼위를 닮아 변화돼야 ‘영’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30. 땅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살면, 그 영이 ‘사망의 영’이 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산 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돼야 영원히 ‘산 영’이 된다.
31. <흠>도 그냥 두면 ‘흠먼지’로 날아가 사라져 버린다. <흠>을 뭉쳐서 도자기를 만들면, 변화되어 ‘천 년’씩 존재한다. 이같이 <자기 영>을 ‘하나님의 영’같이 변화시키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존재해야 된다.
32.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다. <차원>이 ‘하늘’같이 높으시다.
33. 하나님도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할 자가 없으면, 답답하실 것이다. 성령과 성자께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땅에 창조하신 ‘상대의 영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신다. <자기 영>을 ‘하나님의 상대의 영’으로 만들면, 이야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선생이 그 차원에 맞게 말하면 하나님도 “그러하다.” 하고 이야기하신다.
34. <주>도 ‘생각 차원’이 높으니, 자기를 ‘주의 마음’같이 만든 자에게 그 차원만큼 이야기한다. 서로 이야기하면, <주>가 더 가까이 대하고, <주>와 더 통하고 ‘이상세계’를 떠 간다.
35. <전파>가 통해야 ‘그에 해당되는 화면’이 나온다. 이같이 하나님과도, 주와도 그러하다.
36. <삼위의 생각과 형상>을 닮기다. <주>와 일체 되어 ‘삼위의 상대의 영’으로 만들기다.
37.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를 잘 못 하면, <육>이 병들고 사고 나서 일찍 죽듯, <영>도 ‘사망’에 가서 죽게 된다.
38. <죄의 병>을 ‘회개’로 고치지 않으면, <죄>로 그 영이 병들고 죽어서 ‘사망’에 간다. 사망에 가면, ‘죽은 영’이다.
39. <죄>로 더러워져서 그로 인해 ‘병’이 된다. <자기중심, 자기 생각의 병>이다. 그러면 그 생각과 사고가 생명권을 벗어나서 ‘사망권 생각’이 된다. <육>은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지, ‘주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모른다. 그러나 <영>은 그 생각과 행위대로 생명권을 벗어났으니 ‘죽은 영’이 된다.
40. 말씀을 듣고 행하여 ‘관리’를 잘해야 된다. 못하면, ‘영’이 사고를 당하고, 병든다. 고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41. 제대로 살아야 ‘사는 것’이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42. <주>와 일체 되고, <삼위>와 일체 되어 사랑과 희망에 불타서 살아야 그것이 ‘산 자의 희망의 삶’이다.
43. 종교인들을 보아라. 제대로 믿고 사는 삶인지 보아라. 그냥 막연히 산다. 그 ‘영들’도 그러하다.
44. <육>이든, <영>이든 사는 것같이 살아야, ‘잘 사는 자’다.

<2018년 3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양면 창조, 양면 존재 세계>다.
2.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라.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3. <한 가지>만 잘돼서는 천국이 안 된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가지’가 잘돼야 호흡에 지장이 없고 천국이듯, <겉>과 <속>, <현재>와 <미래>, <육>과 <영>, <마음>과 <생각>이 잘돼야 ‘천국’이다.

4. <한 가지>만 보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잘됐어도 ‘반’만 잘된 것이다.
5. 성경에도 ‘양면성 예언’을 했다. <주>가 오면 ‘고난의 주’와 ‘영광의 주’로 온다고 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는다고 했다. 그 예언대로 됐다.
6.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했다. <온전한 축복>은 들어가도, 나와도 ‘축복’이다.
7. <두 가지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다. <육적 축복>만 받으면, ‘일부 축복’이다. <영적 축복>만 받아도 ‘일부 축복’이다. <육적 축복>, <영적 축복>이다.
8. <현재 축복>, <미래 축복>이다.
9.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인한 축복>과 <자녀로 인한 축복>이다. 두 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다.
10. <하나님의 축복>은 들어가도, 나와도 ‘축복’이다.
11.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사 축복이고, 나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사 축복이다.
12.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축복’이다.
13. <환난 때>도 축복, <평소 때>도 축복이다. <환난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늘 함께 다니시며 축복해 주셨다. 악한 자에게 쫓기고 악평자의 음모로 쫓기며 살 때도, 그 지역에서 귀한 작품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 고로 삼위가 주신 축복을 ‘역사의 기념물’로 두었다.
14. <감옥에 있을 때>도 ‘최고의 축복인 말씀’을 주시고, ‘원하는 것’도, ‘교회’도 모두 주셨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하시고 ‘최고의 휴거 역사, 사랑의 역사’를 2015년 3월 16일에 하셨다.
15. <하나님의 행하심>은 ‘일사천리’다. 막으면,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혹은 후에 행위대로 갚아 주셨다. 심판이었다. 하나님은 악평자들의 행위대로 ‘공의로운 심판’을 다 하셨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온 민족과 세계에 밝히신다.
16. 하나님이 도울 것을 돕지 않으시면, 인간들은 모르니 사고 나서 죽고,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 하시기를 “천벌에 어긋났으니 안 돕는다.” 하셨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고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안 된다.
17.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나 안 하고, 안 고치니,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 그들은 문제를 당하고 끝났다.
18. <하나님 심판의 종류>는 수십, 수백 가지다. <자연>을 통해 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도 하신다. 혹은 아예 돕지 않으시어 사울 왕같이 죽게 심판하기도 하시고, 스스로 사고 나서 당하게도 하시고, 길을 잘못 가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게도 하신다. 혹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치시고, 희망을 심판하고, 질병으로 가축을 치기도 하시고, 이웃 나라를 통해 고통을 주기도 하신다. 이외에 가뭄, 홍수, 추위, 태풍, 지진, 화산 폭발, 경제적 고통 등 수백 가지로 행하신다. 스스로 깨닫고 행할 때까지 하신다. 특히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나 메시아를 보내시어 뜻을 이루시는데 이를 막고, 반대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괴롭히고, 옥에 가두면, 하나님은 그 민족과 시대에 행위대로 엄하게 갚아 주셨다.
19. 하나님은 <보낸 자>에게 ‘권세’를 주시어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서 심판을 하기도 하신다. 특히 우상을 섬기는 자, 행악자, 공의롭지 못한 자, 하늘을 배신하고 행한 자들이다. <주>가 죄를 대신해 줬는데

도 돌이키지 않으니, ‘사망’이 그들을 삼키게 한다.

20. 인간은 <하나님>보다 약하다. <주>보다 약하다. <삼위>는 ‘시대 보낸 자’가 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다 행하신다.

21.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의’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 <거짓을 말하는 개인과 민족과 시대>는 ‘성 밖’에 버리신다. <버림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해를 받고 슬피 운다. 한 때 두 때 반 때의 정한 기간까지다. 그때까지 ‘찬 이슬’을 맞는다.

22. 민족 전체를 심판하면 다 죽으니, ‘거울’로 삼으라고 소수만 심판하신다.

23. <거울>로 삼으라고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은 “또 거울을 보라.” 하고 심판하시고, 거울을 걸어 주신다. 이는 ‘자기를 보라.’ 함이다. ‘완전히 행하라.’ 함이다. 그런데도 안 보고 또 행하면, 선(線)을 벗어났으니 탈선한 것이 된다.

24. <할 일>을 안 하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벼락’ 맞는다. <할 일>을 안 해서 사고 나고, 벼락을 맞은 것이다.

25. 편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주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리될 줄 알았으면, 누가 행치 않았겠느냐. 그리될 줄 알았으면 누가 그리하겠느냐. 몰라서다.

26.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고로 알게 된다.

27. 하나님은 아신다. 고로 하나님을 믿고,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다.

28. 하나님은 심판하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알게 하신다.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계산할 때>는 ‘각각’ 계산해야 착오가 없다. 1. 어떤 사건도 ‘각각’ 따지고 분석해야 맞지, 몰라서 ‘공동’으로 취급하면 안 맞다.

2. 사람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다. 고로 쪼개서 계산하고 판단해야 된다.

3. <그것>만 해당된다.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고, <무게>가 다르고, <값>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다.

4. <위치>가 다르고, <때>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관계>가 다르고, <약속>이 다르다. <죄>가 다르고, <심판자>가 다르고, <병의 종류>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배>가 다르고, <피>가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다. <맛>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아름다움>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해 놓은 공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이외에도 만 가지, 백만 가지가 다르니, 각각 따지고 계산해야 된다.

5. <그 일>을 했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주인>이 했으면, 죄가 안 된다. <사명자>가 했으면, 죄가 안 된다.

6.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7. 구약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니, 죄인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니, 그가 한 일을 두고 ‘죄’로 취급한다.

8. <몰랐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 전에 자기가 몰랐던 만큼 ‘죄의 대가, 형벌’을 받고 나온다.

9. 잘 따지기다. 잘 계산하고 판단하고 대하기다.

10. 서로 사랑하는 자인데, 그중 한 명이 욕에 갇혔다 하자. 밖에 있는 자와 손은 못 닿아도 ‘마음’은 다 통한다. 고로 그에게 시켜서 대신 일을 다 한다. <갇힌 자>가 직접 할 일을 못 해서 문제지, <갇히지 않은 자>가 그 몸이 되어 다 한다. <행하는 자>는 ‘갇힌 자의 제2의 몸’이라고 한다.

11. <자기>가 못 하면, ‘다른 자’를 통해 하면 된다. 그러면 다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욕>이 못 하면, 영적인 일은 ‘자기 혼이나 영’이 한다. <욕이 갇혀서 못 할 때>보다 더 한다. 그때는 <욕>도 욕대로 집중해서 하니, 더 많이 한다.

12. 갇히면, 갇힌 대로 가는 길이 있다. <찾길>이 막히면 돌아가야 되니 멀기는 하지만, 그 길을 가면서 거기에 있는 물건도 사게 되고, 구경도 하면서 할 일을 다 하고 간다.

13.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만민을 위한 구원의 길’을 내놓고, 닦아 놓고 가셨다. 고로 후에 그 길로 다니게 하셨다.

14. 그 운동장을 사용 못 하게 하니, 탄 데서 경기하고 끝났다. 이같이 세상이 막아도, 악평자들이 사탄과 함께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뤘다. <막은 자>만 손해가 갔다.

15.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는 일을 막으면, 그들은 구원하지 않는다. 다른 자들이 대신 구원을 받는다.

16. <이 시대>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막은 자들은 다 해를 받고, 영원한 화를 받게 됐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죄인으로 보고 행했다. 고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 있다.

17. <메시아>가 아니면, ‘영원한 영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들이 막은 것이 <사람이 한 일>이면 사람으로 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이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18. 지난날 하나님의 6000년 구원역사를 보아라. 그 시대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어도, ‘보다 선 편’이 고통을 받으며 역사를 펴 나갔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자들은 ‘삭막한 세계’에서 살았다. 영계에 가 보니, 그들은 영의 세계에서도 그리 살고 있었다. 사망 혹은 지옥의 삶이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산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옥 견학을 가서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을 알아보고 자기는 몰랐었다고 이야기한다. 몰랐어도, 자기 잘못된 수조 배를 받는다. 지금도 의인들을 그리 대한 자들은 땅에서도 그 행위의 만 배도 더 되는 고통을 받고 산다. 자기 책임을 못 해서다. 그들의 욕을 안 봐도, 영을 보면 아니 속일 수도 없다.

19. <고기>가 ‘물’을 떠나면 ‘진흙 속’에서 살기는 하나 그 얼마나 고통이냐. <의인들>은 ‘악인들이 주는 고통’을 받고, <악인들>은 ‘의인들과 하나님이 주는 고통’을 받는다.

20.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빛나고, <악인들>은 고통을 받고 망한다. 그 욕으로도, 혼으로도, 영으로도 다 받는다.

21. <의인들>은 욕도, 혼도, 영도 축복받고 산다.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때가 되어 심판받는다. 고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2. <의인들>은 ‘악인들이 주는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하나님의 시대 뜻’을 펴 왔다. <악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 대가를 영원히 받아야 된다. <지옥, 무저갱, 음부의 무기수>가 된 것이다.

23. 하나님도 성자도 “<심판자>를 그리 대하고, <시대 보낸 자>를 그리 대했으니, 내 그냥 안 있겠다.” 하셨다. 지금은

성자가 그 육에게 맡기고 가셨으니, 그 육이 직접 말로 한다. 그는 행하지 않고, ‘말’이 실체가 되어 행한다.

24. <회개할 기회>는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기간’에 줬다. 그때 안 하니, 결국 사망이 덮치고 영원히 해가 됐다. 구시대로 가서 행한다고 하나, 거기도 ‘하나님 주관권’이다. 이는 죄를 범하고 다른 나라로 갔으나 그 나라에서 잡아서 육에 가두는 격이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졸기 전>에 ‘방지’다. <졸 때>는 이미 뇌가 ‘무의식 상태’다. 그때 운전하다 ‘선(線)’을 넘어 사고가 난다. 고로 <졸기 전>에 ‘방지’다. <신앙>도 그러하다.

2. 인생 잘못 따지고 가면, 딴 방향으로 간다. <생각>이 ‘나침판’이다.

3. 한번 잘못 가면, 다시는 못 오는 길로도 가게 된다.

4. 한번 잃으면, 마치 ‘죽은 자’같이 다시 일생을 못 만나고 끝난다.

5. 전쟁 때 길을 잃고 가서, 늪을 때까지 서로 그리워만 하다가 못 만나고 끝났다. <신앙의 길>도 그러하다.

6. 가까이 있다가 헤어지면 그때는 아쉬워 찾다가, 좀 시간이 가면 찾는 자도 생각이 변한다. 떠나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모른다. 다시 생명들을 낳으니, 현재 밀려온 생명들에게 신경을 쓰게 된다.

7. <섭리사 생명길을 떠난 자들>은 자기가 ‘섭리사 생명길’을 떠나 ‘어두운 길’이나 ‘기성 길’이나 ‘기다림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안다.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거기서 곤고함과 안타까움을 당하며 괴로워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새 역사의 길>을 끝까지 가 보지 않았으니, 자기 생각 외에는 모르고 대강만 안다. <신광야 길>은 같이 왔기에, 그 정도만 안다.

8.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신다. <질서>와 <행위>대로 구분하시고 확실히 쪼개서 사랑하신다.

9.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궁궐’에 안 오고 ‘초가집’에서 살아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받아야 된다. 고로 자기가 ‘책임’을 못 하면, 고통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10.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 결국 그 행위대로 지옥 사망으로 간다.

11.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사랑하신다. 서로 사랑한다. 고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그 영이 ‘천국’으로 가거나, 혹은 휴거된 자들은 ‘황금성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산다.

12. <따지는 것>을 잘 따져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마음을 놓지 말아라. 그 사랑은 절대적이다.

13. 하나님은 ‘섭리사에 왔다 나간 자’라도 사랑해 주신다. <비>는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내려 주신다. 그러나 섭리사에서 나간 자는 그 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악의 세계’에 간다.

14. 섭리사에서 제대로 믿으나, 안 믿으나 주는 다 사랑했다. 제대로 못 믿으니, 결국 때가 되어 갈려 갔다.

15. <부모>도, <애인>도 다 사랑해 준다.

16. <잘못 믿고, 안 믿은 자들>은 사랑을 받았어도 결국 ‘사망’에 처해 죽는다. 결국 <잘한 자, 잘 믿는 자들>만 남아서 ‘새 역사’를 차지하고 산다. 고로 진실로 잘해야 된다.

17. <주>는 못해도 살리려고 사랑해 주고, 잘하면 잘했으니 더 잘되라고 사랑해 준다.
18. <잘한 자>만 남는다. 잘 믿고, 잘해라.
19. 하나님은 ‘보낸 자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잘해야 된다.
20. 자기는 제대로 모르면서 잘하는 줄로 안다. 고로 늘 물어보고 해라.
21. <태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 열’을 안 켜다. 받는 자들이 재라.
22. <태양>은 필요한 대로 ‘빛’을 비춘다. 사명이 그것이다.
23. (하나님) <정신이 흐리멍덩한 자>는 가다가 신앙이 죽는다. 기회를 줘어도, 그 기간 안에 자기가 안 해서다.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 안 해서다.
24. <자기를 만들라고 준 기간>에 ‘자기’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기다.
25. 만들어 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다. ‘불’이 나도 상관없다.
26. <댐>을 만들어 놓았으니, ‘비’가 와도 상관없다. 이같이 <영 구원>을 시켜 놓았으면, 상관없다.
27. <해 놓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아라.
28. <안 해 놓은 자>는 ‘죽은 인생’이다. 앞날도 ‘죽음’이 삼킨다.
29. <해 놓은 자>는 죽음이 오면 작살난다. 깔아뭉갬다.
30. <미리 해 놓은 것>이 ‘승리’다. ‘이긴 것’이다.
31. <악인>은 ‘의인의 죽음’을 대신한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2018년 3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만 위해 먹고, 입고, 투자하고 산다. <영원한 길>을 못 찾아서다.
2. <자기 영>을 위해 못 살면, 너무 단순하고 짧은 인생이다. <세상에 속한 자>라도 ‘영도 살리고, 육도 위해 사는 삶’을 배우고 알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같이 얼마든지 한다.
3. <영>을 구원해 놓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4.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을 완전히 준비해 놓고 살아야 된다. <영>을 구원시키고, 휴거시켜 놓고 살아야 된다.
5. <영>을 구원시키고, 휴거시키는 것은 ‘육신’을 통해 해야 된다.
6. <휴거>도 너무 차원이 많다. 휴거 300선, 휴거 700선, 휴거 1000선이다. 육신 쓰고 행하여 ‘휴거 1000선’까지는 해 놓아야 된다.
7. <육신>만 기쁘게 해 봤자 남는 것이 없다. <육>은 한계가 있다. 이는 밥그릇에 물을 담는 격이다. 이리 담으나, 저

리 담으나 한정돼 있다. <영>을 위해 행해야 된다. <영>은 ‘댐’이나 ‘바다’와 같다. <육이 행한 것>을 무한히 받아 가지고 간다.

8. <육>을 위해서도 살고, <영>을 위해서도 무한히 행하여라. <모르는 자>는 몰라서 못 하지만, <아는 자>는 해야 된다.

9. <지혜로운 자, 영원히 누릴 자>는 ‘영’을 위해서 행한다. <영을 위해서 해 놓은 자>는 영원히 얻고 누린다.

10. <육만 위해 행하는 자들>은 강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쓸 정도의 물만 가져다 쓰는 격이다. 고로 나머지는 다 흘러가서 못 쓴다.<영을 위해 행하는 자들>은 ‘가정에서 수돗물’을 쓰는 것과 같아서 필요할 때마다 다 쓴다.

11. <영의 일>은 ‘육’으로 해도 해도 부족하다.

12. <영을 구원시키고, 휴거시킨 자>는 그 영이 ‘생명권’에 있으니, 열심히 ‘혼과 영의 일’을 한다.<세상을 위해 사는 자들>은 ‘먹는 것’에 투자하고, ‘입는 것’에 투자하고, ‘집과 정원, 부동산 등 환경’에 투자하고 산다. 다른 자들보다 10배를 더 먹었어도, ‘보통으로 먹은 자’와 크게 표 나는 것이 없다. <옷>도 그리 많이 입었어도 표가 안 난다.

13. <육의 것>을 해 놓으면, 자기가 쓰는 기간은 얼마 안 된다. <영의 것>을 해 놓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 쓰니, 그것이 자기에게 ‘공적’이 된다. 고로 <하나님의 것>으로 해 놓고 가면, 그 공적이 천 년 간 ‘자기 영’에게 간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간다.

14. <육신>이 ‘영’을 위해 행하여 육으로도 얻고, 육신이 죽고서 영으로도 다 가져가기다. <영>은 ‘변화되어 차원이 높아짐’으로 얻게 된다.

15. <영>이 차원 높이고 변화되는 데는 ‘공적’이 엄청 들어간다. 나머지는 후손들이 역사를 펴라고 놓고 간다.

16. <영>을 하나의 건물로 보고, 월명동 같은 환경으로 보아라. 건물을 짓듯, 월명동을 계속 만들듯 해라. 한없이 차원을 높이며 변화된다.

17. <집>을 짓듯 ‘영’을 변화시키기다. 더 좋게,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하기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기 위해 ‘육’도 한없이 행해야 된다. 그래야 육도, 영도 ‘사랑의 대상체’로 한없이 변화된다. <육>이 행해야 되는데, 안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육도 영도 아름다움이 보통이다. 얼마든지 하면, 된다.

19. <혼>을 통해 자기 상태를 보아라. 무한히 행하기다.

20. <최고>는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다. 시대를 따라 행하여라. 이 시대는 ‘삼위의 사랑’이 중심인 시대다.

21. <육>으로 행해야 그로 인해 <영>이 ‘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다.

22. <시대>를 타고나서 ‘신부’가 됐으니, 저마다 ‘신부의 위력과 능력’이 있다. 자꾸 해야 달인이 되듯, 자꾸 행해야 ‘유능한 하늘의 신부, 완성된 하늘의 신부’가 된다.

23. 새벽에 한 영계에서 보니, 넓은 대지에 집들이 있었다. 한 지역을 가니, ‘똑같이 생긴 일반 집들’이 있었다. 거기서 더 가니, ‘한옥 마을’이 있었는데, 거의 같은 형상으로 된 비슷한 집들이 짝 차 있었다. 그 집에는 사람들이 한 명씩 살고 있었다. 거기서 더 가니, ‘별장들이 있는 지역’이 있었다. 그곳에는 집들이 개성대로 지어져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 한 지역에 ‘궁’을 짓고 있었는데, 두 아름씩 되는 나무를 가지고 ‘빌딩’같이 궁을 짓고 있었다. <왕의 집> 같았

다. 큰 중장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는 자기 행위대로, 자기 공적대로 이같이 ‘영의 집’도 짓는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공적>이 같으면, ‘같은 위치’에 있다. <공적>에 따라 ‘위치’가 다르고, ‘집이 생긴 것’도 다르다.

24. 영계에서 혼이나 영으로 ‘집’을 보면, <영>이 갖춘 대로 ‘위치’가 다르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은 ‘빛나고 아름다운 위치’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산다. 이는 행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다. 이를 깨닫고 육도, 영도 행하여라.

25. 깨달았으면, 매일 바쁘게 행해야 된다.

26. 성령도 주도 늘 너희에게 말하기를, “<큰일>은 ‘짧은 시간’에 못 한다.” 했다. <큰일>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 <월명동 개발>도 ‘20년 이상’ 걸렸다. <월명동 개발>만 한 것이 아니다. <섭리역사>를 펴면서 같이 했다. <하나님이 지상에 정하신 일>을 제때 해야 되기에, <역사를 펴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 두 가지를 병행하며 했다. <자연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저마다 <육>을 위한 일도 하고, <신앙>을 하며 ‘영’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

27. <월명동>도 어느 정도 큰 것은 다 했듯, <성약역사>도 ‘휴거, 큰 것’을 하고 역사를 펴 왔다. 월명동에서 몇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역사를 펴 가면서 하면 된다.

28. 역사에 비바람과 눈보라가 쳤어도, ‘보다 육에 속한 일,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완성했듯이 ‘영에 속한 일’도 섭리사 모두가 이 정도는 했다. 이제 나머지도 다 하면 된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모두 힘내서 하자.

29. <성약역사 하나님의 시대 전>을 세웠으니, 곧 ‘시대 에덴동산’이다. <하나님의 시대 에덴동산>을 차지했듯, 저마다 육도 영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청춘도, 인생도 바치면서 몸부림쳐 해서 ‘신앙의 에덴동산’을 차지했다. <하나님의 시대 전, 자연성전>도 그만하면 충분히 쓴다. 인원이 많으면, 쪼개서 쓰면 된다.

30.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 도시마다 ‘건물 성전’도 마련했다. 휴거 후, 마치 결혼해서 집 장만하듯 했다. 섭리사 세계 각 나라도 건물 성전을 마련한 곳은 했다. 아직 못 한 곳은 준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을 마련하면 된다. 이 같이 했으니, 이제 삼위를 사랑하며 살면서 더욱 ‘복음의 역사’를 펴 나가면 된다.

31. 시대를 위해 조건을 세워 ‘천 년 역사의 길’을 열어 놓았으니, 더 잘된다. <삼위가 성약역사에 택한 자들>이 천 년 동안 끊임없이 오게 한다.

32. <큰 교회>를 짓거나 사려면, 전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큰 곳’을 주신다.

33. <기성>은 시대의 해가 지니, 성전이 계속 나온다. 그 건물들을 세상 사람들이 사서 술집으로 사용하고, 세상 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 어서 전도해라. 기성에서 지어 놓은 곳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니, 조건이 되면 하나님은 ‘새 역사’에 주신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으니, 나름대로 다 잘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고, 많은 자들을 전도하여 부흥시켜라. 매일 기도해라.

34.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요, ‘주의 몸’이다. <삼위도 주도 거하는 몸>이다. <육의 몸>이며, <영의 몸>이다. 그러니 자연성전도, 각 교회 성전도 귀히 여겨라.

35. <자기>도 ‘하나님과 주가 거하는 몸’이니 귀히 여겨라. <휴거된 자들>은 기성인들보다 천 배, 만 배는 더 귀하다. <삼위의 사랑의 신부가 된 자들>이라서 그러하다.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을 두고 미루면 할 수 없나니, ‘미련한 자’니라.

2. <금메달을 목적하고 경기하는 자>가 다 잘했어도 그중 ‘하나’만 잘못하면 그로 인해 실격이 되어 얻지 못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하는 자>도 ‘100% 해야’ 그 일의 상을 얻게 되느니라. <100% 하는 자>를 두고 ‘완전하다.’ 하니라.
3. 100% 잘하도록 매일 ‘연습과 실천의 삶’을 살아라. 그래야 ‘큰 목적’을 두고 능히 잘할 수 있느니라.
4. <잘하는 자>는 운동선수같이 수백 번 연습하고, 실전에서 겨루게 되느니라.
5. <사람>은 실수를 하니, 사람 대신 ‘기계’를 만들어 기계가 완전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이같이 <신앙의 일>도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해야 모든 일을 잘하게 되느니라.
6.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전심으로 해야 하느니라.
7. <작은 일>도 절대 100% 해야 뇌도 생각도 100% 온전하게 형성되고 몸도 연단되어, 후에 <큰일>도 잘하게 되느니라.
8. 사람은 ‘자기 실수’로 인해 자기도, 타인도 해를 받게 되나니, <온전히 행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느니라.
9. 힘들어서 제대로 못 하게 되고, 혹은 <지혜와 기술>이 없어서 못 하게 되고, 혹은 <생각>에서 잊어서 못 하게 되고, 혹은 할 수 있는데도 몸과 마음과 심혈을 다해 정신 차리고 하지 않아서 못 하게 되느니라. 늘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니라.
10. <전지전능하신 삼위>와 같이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같이 행해 주시리라.
11. <황금성 천국>도 ‘끝까지 잘 행하는 자’가 가느니라.
12. 어떤 자는 20년을 잘하다가도 이성에 끌리어 하늘을 배신하고 ‘세상길, 사망길’로 가나니, <영원한 세계, 황금성 천국>을 ‘순간의 이성 사랑’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니라. 끝까지 잘해야 과거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니라.
13. <할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잘하는 데’만 생각을 써라. <지혜>는 ‘행하는 데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니라.
14. 지나치면, 지나친 만큼 오히려 해가 되니라.
15. <지혜>는 ‘판단’이니라. <판단>하고 행하면, ‘해된 것’에서 벗어나느니라.
16. <입>에 맛있는 것 ‘하나’만 생각하고 먹으면 <몸>에는 해가 되나니,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해가 되니라.
17.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행함>이 습관이 돼야 각종 기계같이 실수 없이 행하게 되느니라.
18. 철을 깎아 기계를 만들듯 ‘자기’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을 하든지 잘되느니라.
19. 절대로 ‘100% 한 것’만 100% 된다고 생각하여라.
20. 사람은 행한 대로만 만들어지나니, 절대 행함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아라.
21. <기계>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고장 날 때마다 고치면서 ‘존재할 때’까지 쓰나니,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22. 자기가 전심으로 못 해서 안 되면 포기하게 되나니, 회개하고 다시 하면 ‘그동안 과거에 한 것들’이 헛되지 않으리

라. 못 해서 안 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기에게 ‘최고의 길’이니라.

23. 삼위가 ‘자기를 언제 도우셨는지’를 진정 알아보지 않으면, 도움을 받고도 언제 도우셨는지를 모르느니라.

24. 삼위는 <도울 자>에게는 ‘꼭 도와야 할 극치의 때’에 도우시니라.

25. 저마다 삼위가 ‘극치의 순간에 도우신 것’을 깨닫고 대화하면, 삼위는 “그러하다.” 하고 응답하시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는 ‘불꽃 같은 눈’으로 늘 살피며 도우시니라.

26. <행할 때>는 ‘삼위와 주’와 같이 대화하면서 행하여라. 그래야 ‘삼위와 주의 생각’으로 더 좋게 잘하게 되느니라.

27. 자기 스스로만 하면 역시 ‘사람의 행함’이라 ‘신성’이 없느니라.

28. <신성>으로 해야 빛나고, 삼위와 같이 영광을 누리니라.

29. 할 일을 해야 ‘평안’이니라.

30. <지혜>는 ‘할 일을 하는 것’이니라.

31. <악인과 사탄>은 ‘의인’을 쫓아오나, 그 길은 자기 길이 아니니 끝까지 오지를 못하느니라. 이는 마치 쫓던 개가 ‘자기 주권권까지만’ 쫓아오다 마는 격이니라.

32. <행악자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가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행하는데 가는 곳마다 막고, 쫓고,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며 악평하고, 오히려 ‘악인 취급’을 하였나니,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의인들은 더욱 빛났느니라. 때가 되어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빛이 어둠을 삼켰나니, 결국 쫓던 자들은 어둔 사망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물>이 ‘피’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에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 바가 되어, 악인들은 버려짐을 당했느니라.

33. <자기를 구하려 온 자>를 불신하면, 구할 수가 없느니라.

34. 자기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워 이겨 주고 구해 주는데, 오히려 사탄과 함께 자기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다해 ‘자기를 구하려 온 자’를 공격하니, 자기 책임을 못 한 연고로 구할 수가 없느니라. 이는 자기 집에 불이 나서 구해 주러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 있는 사탄들에게 핏을 받고 ‘자기를 구하려 온 자’를 악평하고 나오지 않는 격이니라.

35. <생각>이 잘못되면 ‘그 몸’도 잘못되나니, 이는 마치 ‘불에 탄 나무나 불에 탄 집’ 같아서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느니라.

36. 돌이키도록 성령은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보내어 행하였어도, 그때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먼 길로 떠나가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멀고 먼 데서 돌을 던지며 의인들에게 해를 주는 격이 되었느니라.

37. <그릇된 자기 생각, 고집, 교만>이 자기를 ‘영원한 사망길’로 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고집과 교만을 없애야 되느니라.

38. 흔히 말하길 “나는 하나님께는 고집과 교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 <하나님이 보낸 자>께 행한 것도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은 ‘보낸 자의 욕신’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이니라.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자기만 ‘무지’로 그리 생각할 뿐이니라.

39. <행악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머리로 치고 박아서 뇌진탕이 일어나 죽으나, 거기서 이긴 자라도 다른 제 동료가 뒤에 와서 또 머리로 박고 충을 싸서 결국 죽게 하니라. 고로 <악인>은 이긴 자도, 패자도 결국 죽으리라. <의인>은 ‘악

인의 결국’을 목격하나니, 성령께서 그 실상을 보여 주셨느니라.

<2018년 3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살아간다. 고로 ‘생각’을 아주 잘해야 된다.
2. <생각>은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3. <생각>을 잘하고 좋게 하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쪽>으로 생각해라.
5. <생각>을 발달시키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려면,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보아라. 그리고 행하여라. 그리함으로 자기 생각을 다스리고 주관하여라. 자기 생각을 통치하여라.
6. <하나님과 주>를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해 봤자, 그때는 즐겁고 좋아도 ‘육’으로 끝나니 허무하다. <영원히 남는 일>을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면, 행한 대로 ‘영’이 형성되어 영원토록 누리며 쓰고, 또 영의 세계에 ‘실체’로 ‘자기가 거할 집과 환경’이 건설되어 자기 영이 그곳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된다.<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의 생각으로 산 것>이 이같이 크고 다르다.
7. 매일 <온전한 의의 생각>으로 살아라. 육으로도, 영으로도 받고, 영육이 형통하며 기쁨과 희망으로 살게 된다.
8. <생각>을 놓리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고, <주의 생각>같이 좋은 생각을 달라고 간구해라.
9.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몸’이 느끼는 대로 가게 되고, 행해진다. 마음과 생각과 몸이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
10. <느낌의 인생들>이다. 느끼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 <이성 사랑>을 좋게 느끼면, ‘이성 사랑 쪽’으로 행하며 살아간다. <먹는 것>을 좋게 느끼면, ‘먹는 쪽’으로 생각하며 좋아 살아간다. <물질이나 재물>을 좋게 느끼면, ‘물질이나 재물 쪽’으로 생각하며 좋아 살아간다.
11. <뇌신경>과 <몸 신경>은 ‘좋게 느끼는 쪽’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12. 추우면 ‘따뜻한 쪽’을 생각하고, 더우면 ‘시원한 쪽’을 생각하듯이 사람은 ‘뇌와 몸 신경이 느끼는 쪽’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 고로 항상 하늘에 속해서 그쪽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원한 승리를 얻고, 육도 영도 최고로 누린다.
13. <생각과 마음>이 좋아서 흥분하면, 늘 그쪽으로 생각하고 행하며 기뻐 살아간다. 자기 생각대로 느끼고 흥분되어 살아가면, 마치 ‘소모품’같이 순간 끝나는 ‘육의 삶’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뜻에 속해 주 안에서 기뻐 흥분되어 살아가면, 육신이 살 때까지 그 기쁨이 지속되고, ‘영’으로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간다.
14. <마음과 생각>을 주 안에서 기쁘게 흥분시키고 ‘영원한 것’을 행하여라.
15. <자기 마음과 생각>을 ‘세상 이성 사랑’으로 흥분시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두고 흥분시켜 기쁨으로 행하여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뇌와 생각과 마음’을 흥분시켜 기쁘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행하게 하신다. 고로 구하라. 찾아라. 말하여라. 대화하고, 간구하고, 극으로 사랑하여라. 매일 행하여라.
16. <이성>도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면, 느낌도 없고 흥분도 안 된다. 이같이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가만히 놓아두면 기쁨도 없고, 느낌도 없고, 흥분도 안 된다.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가만히 놓아두지 말고, 매일 생각하고 행하여라. <행하는 자>의 것이다.

17. 삼위를 믿었으면, 가만히 있지만 말고 ‘삼위의 생각’으로 행하여라. 그래야 느끼고, 흥분되어 기쁘다.

18. <하나님의 새 시대 휴거 말씀과 사랑>의 가치를 알고, 매일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라. 처음에는 마치 ‘천 원의 가치’ 같았던 역사가 이같이 ‘하나님의 최고 역사’로 수만 배 가치 있는 역사가 되었다. 모두 <하나님 역사의 가치>를 깨닫고 귀히 여기며 기뻐 살아라. <하나님의 새 역사>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잡았으니, 열심히 행하여라.

19. 모르면, 귀한 것도 버리고 ‘가치 없는 쪽’을 택한다.

20. 휴거되고도 ‘이성 사랑’이나 ‘각종 세상’에 빠져서 행하다가 휴거를 상실한 자는 자기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팔아 버린 자와 같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냐.<시대 주>와 <사랑 휴거>는 수만 배, 수조 배 더 귀하니 신앙을 팔지 말아라. <삼위와 주>를 극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21. <영원한 것>을 뺏기지 말아라. <영원한 것을 얻은 자>는 육으로도 평생 희망이 되고, 기쁨거리가 된다.

22. <휴거된 자>는 ‘완전함’을 위해 더 차원을 높여야 된다. <휴거 사랑>은 하면 할수록 계속 극으로 그 가치가 올라간다.

23. <세상 것>을 다 받는 것보다, ‘휴거된 것’이 더 크다. <세상 것>을 다 받아도 역시 ‘개인’이 쓸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누린다. 그것은 ‘짧은 인생’에 불과하다. <영원한 사랑 휴거>를 이뤄서 ‘삼위의 신부’가 되면, 육신도 평생 누리고 영도 영원히 누린다. 이를 깨닫고 휴거를 귀히 여기며 행하여라.

24. <휴거의 차원>을 높여라. <사랑의 강도>를 높여야 더 느끼고, 더 기뻐 흥분되어 희망에 차서 살아간다.

25. (하나님) <아는 자>는 ‘여론’이나 ‘심리’에 마음도, 생각도 흔들리지 않는다.

26.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 가치가 올라간다. 6000년 동안 구원역사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점점 최고로 치솟았다. 하나님이 6000년 만에 행하시는 ‘휴거 사랑 역사’인데, 최고로 안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야 놀란다. 깨닫기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모르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른다. 그러면서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

27. <세상>은 ‘한정된 세계’다. 이를 이미 영계에서 보았노라. <하나님의 것>은 계속 치솟아 가니, 모두 전심으로 행하여라.

28.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신부들이 하늘나라까지 오는데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살면서 조심하라고 주신 것이다. 또 육신이 늙기 전에 어서 행하여 자기 영을 변화시키라고 주신 것이다.

29.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자기 영’이 최고로 변화되고 만들어져서 그 차원에 맞게 천국에서 살게 된다.

30. <육신>이 끝나면, ‘육신이 살 때 해당되는 법’은 없어지고 ‘하늘 법’만 남게 된다.가령 천 리 길을 오는 애인에게 ‘천 리 길을 오면서, 절대 졸지 말아라.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와라. 다른 이성들을 만나지 말아라. 바다 수영은 위험하니 하지 말아라.’ 하고 ‘법’을 줬다 하자. <목적지>까지 다 오면, ‘천 리 길을 올 때 줬던 법’은 끝난다. 이같이 하나님도 신부들이 ‘황금성 천국’에 올 때까지 무사히 오라고 ‘법’을 주신 것이다.

31. <천국에 갈 때>도, <세상에서 살 때>도 ‘목적지’까지 갔으면, 그 법은 없어진다.

32. <법>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기 소원을 이뤄서 목적지까지 가게 해 주는 ‘기구’다. 이를 깨닫고 해야 된다.

33. 사람은 ‘신경’이 느끼는 대로 ‘몸’이 작동된다. 그러니 자기 신경이 ‘하늘’을 느끼게 해라. 그러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그쪽을 향해서 행하게 된다. <기도와 말씀>이다.
34. <눈이 쳐다보는 쪽>이 보이고 느껴지듯이, <생각하는 쪽>으로 보이고 느껴진다. <자기 몸과 생각과 뇌신경>을 깨닫고 행하여라. <절제할 것>과 <행할 것>을 분명히 하여라.
35. <자기 정신과 생각>이 ‘영적인 신경’이다. <신경>을 자꾸 둔하게 두지 말고, <자기 정신과 생각>이라는 ‘영적인 신경’을 매일 써라.
36.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생각’이 기쁨과 희망으로 흥분된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그때마다 ‘기쁨과 희망’으로 행함으로 ‘실체’로 존재하게 해라.
37. 기쁨과 희망이 식고 흥분이 식으면, 안 행해진다. 하고자 할 때 행해야 된다. 그때가 ‘가장 하기 쉬운 때’다. 그때가 지나면, ‘하기 싫은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된다. 그러다 생각에서 잊고, 아예 못 하게 된다.
38. <음식>도 ‘먹고 싶을 때’ 먹어야지, 그때가 지나면 ‘뇌신경 작동’에 의해 마음도 생각도 돌아가고, 느낌도 없어진다.
39. <생각 날 때, 희망에 흥분되어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 생각도, 느낌도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져서 아예 할 수가 없게 된다.
40. <자기 인생>에 대해 알아라. 모르면,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어도 수십 년 동안 못 쓰고, 일부만 작동시켜 쓰는 자와 같다.
41. <삼위와 주>와 대화하고, 사랑해야 마음도 생각도 흥분된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흥분됐으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때 할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실체로 존재하는 것’을 얻게 된다.
42. <기분>으로 좌우돼서 하지 말고, ‘근본 사랑’을 두고 행해야 된다. <기분>은 순간 변한다.
43. <그동안 해 놓은 것>은 ‘공적’이라 실존하고 있다. 고로 <자기가 그동안 해 놓은 공적>에 중심을 두고 봐야 된다. <마음>은 흔들려서 ‘그동안 해 놓은 것’도 순간 버리기도 한다.
44. 환란, 핍박, 고난, 각종 어려움, 다툼, 심정 상한 일들에 부딪히면, 생각을 돌리고 마는 자들이 많다. 이럴 때는 생각을 ‘자기에게 닥친 일’에 두지 말고, ‘그동안 해 놓은 것’에 중심을 두고 쳐다봐야 된다.
45. 10년, 20년씩 신앙을 하다가도, 어려움에 부딪히면 심정 상해서 못 견디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동안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
46. 예수님은 ‘풍랑을 만난 베드로’에게 “나를 보아라.” 했다. <이 시대 역사>도 오면서 ‘풍랑을 만날 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많이 나갔다. <그동안 해 놓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간 것이다. 천국에도 해 놓고, 섭리사에도 해 놓았어도 다 버리고 나갔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한다.
47.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역사의 것’이다. 그 바람에 오는 축복들이다.
48. 환란 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그동안 해 놓은 것’을 보아라.
49.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늘 환란과 고통이 왔다. 그때마다 ‘해 놓은 것’을 보고 고통을 참았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섭리사가 차지했다.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가 포기하고 안 하면, ‘수고도 안 한 자’가 그것을 얻게 된다. 이는 <후대에 오는 자들>이 수고도 하지 않고 월명동을 쓰는 격이다. 환란 때 나간 자들 대신 그들이 와서 쓴다.

50.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다 어려움이 있다. <끝까지 이기고 온 자들>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얻은 것’을 다 누린다. <개인 것>도 누리고, <섭리사 것>도 누린다. <황금성 천국>은 영원히 누리도록 ‘영’이 잡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기회>를 줘도 ‘하는 자’가 있고, ‘안 하는 자’가 있다.
2. <첫 번째 기회>에 못 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면, 그때 ‘하는 자’가 있고 그나마도 ‘안 하는 자’가 있다.
3. <하는 자>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하고, <못 하는 자>는 ‘작은 차이’를 가지고 못 한다. 그 차이는 아주 작다.
4. 하고, 못 하고는 ‘생각’에서 좌우되고, ‘행위’로 좌우되는데, 이는 아주 작은 차이다.
5.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작은 차이’다. 거기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6. 사람이 할 일을 두고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겠다.’ 하는 생각과 혹은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의 아주 작은 차이다. 또는 할 일을 두고 움직이거나 혹은 안 움직이는 아주 작은 차이이다.
7. 사람마다 힘이나 능력의 차이도 아주 작다.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순간 생각하고 움직이는 차이에 따라 좌우된다.
8. 하고, 못 하고는 ‘자유 의지’이기도 하고, 가장 큰 것은 자기 생각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절대 자기 신경도, 생각도 행하는 길을 들여야 된다.
9. <뇌신경>은 ‘생각’과 같이 운행된다. 생각을 했어도, 뇌신경이 둔하면 생각대로 잘 안해진다.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뇌신경이 둔해서 자극을 못 받으니 생각했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은 했는데 ‘몸’이 무겁고 둔하면 몸이 빨리 안 일어나지는 격이다. 몸이 가벼우면, 생각하고 바로 움직여진다.
10. <운동선수>를 보면, 많이 해 봐서 생각한 대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이같이 ‘뇌신경, 몸 신경, 손과 발 신경’ 모두 생활에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 축구 선수가 축구 하듯, 배구 선수가 배구 하듯, 탁구 선수가 탁구를 치듯 ‘생활의 선수, 삶의 선수’가 돼야 한다.
11. <하고, 안 하고>는 ‘많은 훈련’으로 좌우된다. <뇌신경, 생각, 몸> - 이 세 가지를 숙달시켜야 때가 됐을 때, 제시간에 하게 된다.
12. <몸>이 굳으면 안 움직여지니 풀어야 되듯, 뇌신경도 생각도 움직여서 풀어야 ‘순간 포착’하여 행하게 된다.
13.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작은 차이’에서 좌우된다. 안 하게 되는 이유는 <몸과 뇌신경>이 둔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생각’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다. 자기 몸과 뇌신경이 둔해졌으면, 풀어야 된다. 절대 할 일이다.또 한 가지 할 일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조건을 세워서 절대적으로 흠 없이 해야 된다. 그래야 시간 착오 없이 행하게 된다. 하수도에 ‘물’만 내보내면 절대 안 막힌다.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막힌다. 저마다 절대적으로 ‘흠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삼위와 주를 벗어난 일>을 하면, 그 주관권에서 벗어나게 된다.
14.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옆으로 발을 헛디디면 넘어진다. 이같이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서 넘어진다. 잘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
15. 잘하려면 ‘기술’이다. 성공하는 데 있어 ‘작은 일’부터 배우기다.

16. 실 가닥만큼도 이상 없이 하면, 잘하게 된다. 100% 완벽하게 하면, 성공한다.

17. <잘하는 기술>도 배워야 된다.

18.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주 작고, 또 하고서도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차이>도 아주 작다. 잘하려고 ‘생각’에 신경 쓰고, ‘손과 발과 몸’에 신경 쓰는 것도 거의 백지장 같은 차이다. <잘한 것>을 보면, ‘조금 더 신경 쓰고 행한 것’이다. 무엇이든 각자 생활에서 실험해 보아라.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다 자기가 했다. 조금 더 해서 성공, 조금 더 못 해서 실패다.

19. <잘했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한 것이다. <아주 잘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아주 집중하고 실천한 것이다. <못한 것>은 신경도 덜 쓰고, 생각도 집중하지 않고, 실천도 태만하게 한 것이다.

20. 하면 다 잘하는데, 안 해서 제대로 안 되고 실패한다. 그러니 늘 하나님께 해 드린다고 생각하고 정성 들여 행하여라. 행한 대로 자기 영이 예뻐지고 아름답게 된다고 생각하고 행하여라.

21. <자기 영>은 절대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 형체가 만들어진다. 행한 대로 ‘의’로, 혹은 ‘불의’로 만들어진다. 자기 영의 형체를 만든 대로 영원히 살게 된다.

22. 세상에서도 ‘자기 욕’을 운동해서 만든 대로, 혹은 손을 대서 만든 대로 평생 쓴다.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행하여 욕도 혼도 영도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를 보면서 희망과 기쁨으로 살게 된다.

23. <자기의 희망>을 가져야, 자기가 기뻐서 자꾸 한다. <남의 희망>은 두 번째다. 먼저는 <자기의 희망>을 가져야 되니, 자기 욕도 혼도 영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희망 덩이, 기쁨 덩이’가 되게 하여라. <사망 지옥>으로 안 가게 자기 영을 만들면, 영원히 기쁨으로 살게 된다.

24. 세상에서도 <자기 욕>이 병이나 사고로 안 죽게 하면 ‘육신 평생’ 살게 된다. <영>도 ‘사망’으로 안 죽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

25. <성령님이 도우신 것>만 가지고 100% 안 된다. <자기>도 100% 하려고 해야 성령님께서 도우신 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고로 자기가 잘해야 된다. 마치 ‘높은 외나무다리’를 걸어갈 때 정신 차리고 가듯, 자기가 정신 차리고 신경 써서 해야 된다. 그때 성령님도 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

26. 성령님이 잡아 주시는데도 몸을 좌우로 구부리고, 발을 헛디디면 결국 떨어진다. 성령님이 잡아 주셔도, 본인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행위’를 하니 떨어지는 것이다. 떨어져서 다치고는 “왜 나를 안 잡아 줬지?” 한다. 본인이 잘하고 자 안 하니, 잡아 줘도 안 된다. <본인>이 잘하려고 해야, <본인과 잡아 주는 자의 힘>에 의해 하게 된다.

27. <삼위>는 늘 잡아 주신다. 그런데도 본인이 싫다고 안 하면, 절대 안 잡아 주신다. 자기가 간구하고 원해야 된다. 그리고 삼위가 잡아 주시면 잘해야 된다.

28. 행하다가 ‘정신과 생각’이 탄 데로 흐르면, 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행해야 된다. 그때 성령님도 주도 같이 해 주신다.

29. 육신 성공하면, 평생 누린다. 영 성공하면, 영원히 누린다.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공하는 자>치고 전심으로 행하지 않은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안 해도 ‘잘하는 데, 성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며 마치 신을 섬기듯 했다. 그러니 ‘육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끝난다. <영원한 실패자>다. <육>도 그 영향으로 만족이 없고, 곤고하고, 영적 빈곤이 연속된다.

2. 욕도, 영도 ‘두 가지’를 성공해야 된다.

3.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성공한 자>가 ‘최고’다.

4.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성공한 자>는 ‘욕적으로만 성공한 자’와 아예 비교가 안 된다. <영원한 성공을 한 자>와 <세상 욕만 성공한 자>는 마치 ‘일생 동안 영광을 누리며 즐기는 자’와 ‘하루 동안 영광을 즐기는 자’의 차이와 같아서 아예 비교가 안 된다.

5. <세상 욕의 성공>은 ‘영원한 영의 성공’에 비해 1분도 안 되는 시간이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잘 지내다 죽는 격이다.

6. <뇌>는 ‘욕의 낙’만 누리고 살면, 욕으로만 즐기고 그 이상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로 <뇌 생각의 길>을 잘못 들이면,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7. 세상 재벌, 명예가들을 보아라. 늙어서 숨만 쉬고 있다. 그 재산을 지금 다 투자해도, ‘영적 성공’을 못 한다. 끝났다. <영적 성공>이 금방 되느냐. <욕>이 부자 되는 것만큼 힘들다. <영적 성공을 한 자>는 ‘영적인 일’만 해 왔다. 일생 동안 했다. 고로 ‘영적 재벌’이 되어 성공한 것이다. <황금성 천국>을 차지해 놓고, <욕적인 것>도 해 놓았으니 그 영광이 천 년씩 간다.

8. <욕적인 것>은 해 놓았어도 별로 볼 것이 없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도 ‘영의 집 한 채’도 못 산다.

9. <욕적인 자들, 명예가, 재벌들>은 ‘영’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자들>은 다 ‘영’이 ‘재벌 그룹의 회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욕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살면서 삼위와 주와 함께 누리며 재미있게 산다. <영과 욕의 성공>을 한 것이다.

10. 사람은 다 잘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몰라서 ‘영적 성공’을 못 한다.

11. <영적 성공을 한 자>가 ‘욕만 성공한 자’를 볼 때는 ‘인생 해 그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와 같다.

12. <욕만 누리는 자>는 ‘영적 성공을 한 자’를 보고 안 알아준다. <영적 성공을 한 자>도 ‘욕만 성공한 자’를 보고 안 알아준다. <두 가지 성공>을 한 자가 돼야 한다. <욕>은 ‘영이 성공하는 데 뒷받침’이다.

13. <욕>은 성공하면 대개 ‘인생의 해’가 진다. 고로 쓸 시간이 없다. 세상을 봐도 “60~70세에 집을 장만하니, 쓸 시간이 없다.” 한다. <영>을 위해 해 놓으면, 기한 없이 영원히 쓴다. <영원히 쓰는 것>이 얼마나 크냐.

14. <어른들>은 ‘10대, 20대, 30대 젊은 자들’을 안 알아준다. 해 놓은 것이 별로 없고 몸만 있어서다. <젊은 자들>은 ‘어른들’이 아무리 해 놓은 것이 많아도 안 알아준다.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다. <젊은 자들>은 ‘시간’이 많으니 훨씬 낫다. <누가 시간이 더 많느냐>에 따라 ‘더 큰 권세, 더 큰 영광’이 좌우된다. 이와 같이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짧은 욕의 시간’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권세와 영광’이 좌우된다.

15. <욕의 시간만 가지고 있는 자들>은 ‘욕의 시간’만 가지고 ‘욕’만 영광을 누린다. 기껏 해 봤자 일순간 끝나는 이성의 낙이나 명예욕을 채운 것들이다. 그것을 해 보나 마나 다 하고 난 후에는 ‘무(無)’로 끝난다. <남는 것>이 없다. <남는 것>은 오직 ‘영을 위해 행하며 산 것들’이다.

16. 사람들을 보아라. 죽으면, 자기가 쓰던 것은 ‘1원’이라도 못 가지고 간다. <욕>은 못 가지고 간다. <영>이 구원받고 살면, ‘욕의 것, 영의 것’을 다 가지고 간다. <욕>은 죽어서 못 쓰니, <영>이 지상에 놓고 쓰고, 또 하나님은 영계에 가지고 가서 쓰게 하신다.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은 천국에 그 형상을 그대로 옮겨 주셔서 쓰게 하신다. <영>에 대해 잘 모르면, 한탄하며 아까워한다.

17.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고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살던 육신의 고향이나 그 배경을 천국에 ‘천국 식’으로 깨끗하게 옮겨 주신다. 하나의 기념이다. 또 <세상에서 육신이 살면서 해 놓은 것>을 ‘영’이 오고 가면서 본다.

18.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다. <육>은 끝났으니, 그 후 2000년 동안 그 육신을 본 자가 한 명도 없다. 육신이 살았으면, 지상에서 그 육신을 봤을 것이다. 예수님이 선생에게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2000년 전 그때, 내 육신도 죽었다.”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 됐다.

19. <예수님 때>도 그때 살아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모두 ‘주의 것, 메시아 예수님의 것’이라고 관리하면서 신약역사 2000년 동안 해 왔다. 그것 다 <메시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 계속 쓴다. <영>으로 오셔서 쓰시고, 다 다스리신다. 또 <예수님을 믿고 산 자들의 영>은 ‘낙원 천국’에서 쓰고 누리며 산다. 거기서도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다. 낙원 천국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나 예수님이 다녔던 곳들이 ‘배경’으로 있다. 이같이 육신이 죽어도, ‘영’은 멸망치 않으니 영이 계속 쓴다.

20. 지상영계에 가 보면, ‘육신이 죽은 자들의 영’이 땅에서 자기 육신이 살던 집에 살고 있다. 한 기간까지 살다가 떠나기도 한다.

21.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의 영>은 영계에 ‘별장’을 짓고 쓴다. <영계>에도 집이 있고, <육계>에도 자기가 살던 집을 ‘영’이 오고 가면서 보고 쓴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니, 하나님은 다 해 주신다.

22. 한번은 어떤 집을 가 보니, 거기에 영들이 있기에 “이 집에 사는 자를 괴롭히지 말고 나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 영들은 내 집인데 왜 나가냐고 했다. 물어보니, 자기는 여기서 살다 죽었다고 했다. <육>으로 못 살았으니 ‘영’이 산다고 했다. 자기도 때가 되면 다른 영계로 간다고 했다. 그 영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기에, 그 영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줬다.

23. <영계>는 각자 ‘삶’에 따라, ‘위치’에 따라 사는 것이 다르다. <사는 것>이 바뀌면, ‘영의 위치’도 바로 바뀐다. <육신>도 ‘사는 삶’이 바뀌면, 바로 위치가 바뀌게도 된다.

24. <지상영계>는 누구나 원하면 꿈으로 ‘자기 혼’이 가 보게 된다. <혼>은 낮에도 ‘지상영계에 사는 영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 <자기 사명과 실력들>이다.

25. <세상 사람들>을 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삶이 있듯, <영계>도 자기 육신의 행위에 따라 형성되어 그에 해당되는 각종 삶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26.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조금 차이’이니, 매일 신경 쓰고 제대로 행해야 된다.

27. <육>도, <영>도 ‘두 가지’를 모두 성공해야 된다. <성공>은 ‘조금 차이’로 좌우된다.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생각’과 ‘성공할 수 없는 생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2. <성공할 수 있는 생각>을 행하면 성공하고, 안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행하며 살아가게 창조해 놓으셨다.

3.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신다. 다만, 깨닫게만 해 주신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도와주신다. 도와주셔도, 다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해당되는 쪽’만 도와주신다.

4.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주 작다. 조금 더 하면 성공, 조금 더 안 하면 실패다.

5. <하는 쪽>도 무한하고, <안 하는 쪽>도 무한하다. <생각과 마음과 몸>에서 좌우된다.
6. <할 일>을 두고 ‘하는 자’는 무한히 하고, ‘안 하는 자’는 무한히 안 한다.
7. <잠>도 자면 무한히 자고, 안 자는 것도 무한하다.
8. <일>도 ‘하는 자’는 무한하게 하고, ‘안 하는 자’는 무한히 안 한다.
9. 평생 ‘하나’도 못 하는 자가 있고, 평생 ‘수만 번’을 하는 자도 있다. <하는 자>는 무한히 하고, <안 하는 자>는 무한히 안 한다. <하는 자>나, <안 하는 자>나 그 잠재 능력과 재능은 둘 다 같다.
10. <하는 자>는 한 것을 가지고 얻고 살아가고, <안 하는 자>는 안 해서 고생하며 살아간다.
11. 매일 ‘할 일’이 닥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12. <노력>이다. <과감한 생각과 실천>이다.
13. 인간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행할 때’다.
14. “더 이상 못 하겠다.” 해도, 쉬었다 하면 해진다.
15. 운동장을 뛰고 나서 “더 이상 못 뛰겠다.” 하고 쉬었다. 쉬었다 뛰니, 또 뛰어졌다. 그래서 ‘목표치’까지 다 하고 성공했다. <성공>은 “더는 못 하겠다.” 하는 데서 더 할 때 성공한다.
16. <성공>하려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힘들어도 기어이 하기도.
17.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연단하고 단련하여 매일 ‘실천’하게 해야 된다.
18. <전도를 안 하는 자들>은 3년, 7년, 10년이 가도 안 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들의 영을 보면 아주 표가 난다. 하나님께 책망 받을 자이며, 주께 심판받을 자다. <생명 구원에 실패한 자들>이다. 전도해야 성공한다.
19. <전도를 안 하는 자들의 영>은 병들어 있다. 전도를 해야 낫는다. 이런 자는 행여 휴거됐어도 그 집에는 아무도 없이 쓸쓸하다. 마치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자와 같고, 한 골짜기에서 혼자 일하는 자와 같다. <전도한 자들>은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은 자와 같다.
20. <전도>는 ‘3명’이 기본이다. 7명, 10명, 20명, 30명, 70명, 100명씩 할 수 있다. 하면, 무한하다. <안 하는 자>는 무한히 안 했다.
21. “1년만 전도하겠다.” 하고 절대 하면, 무한히 한다. 삼위와 주는 절대 함께해 주신다.
22. <일생 동안 전도하는 자>도 있고, <일생 동안 전도 안 하는 자>도 있다. <섭리사>에 와서 ‘이성 세계’에만 눈을 뜨고 즐기고, 전도를 안 한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엄히 책망하시고 “전도해라.” 하셨다.
23.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다니는데, 어떤 자는 ‘빈 머리’만 가지고 다닌다. 이들은 서로 ‘위치’가 다르니, 갈라져 간다. 그때서야 그리도 후회를 한다. <생명의 귀함>을 모르니, 하나님께도 주께도 ‘귀한 취급’을 못 받는다. 큰 영광을 빼긴 것이다. 마치 돌만 쌓고 ‘꽃과 나무’를 안 심은 조경과 같고, ‘물이 없는 폭포수’와 같고, ‘열매 없는 침엽수’와 같다. <전도한 자들>은 ‘과일나무에 과일이 연 것’과 같다.

24. <섭리사를 나간 자들> 중에 전도를 안 한 자들이 많다. <전도를 안 한 자>를 영계에서 보니, 혼자 쓸쓸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전도한 자>는 '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했다.

25. <전도를 안 한 자들>은 집회나 강의, 설교 등을 하지 말아라. 은혜가 안 된다. 집회자도, 강사도, 설교자도 집회하기 전, 설교하기 전에 자기가 몇 년 동안 몇 명을 전도했는지 꼭 말하기다.

26. <전도를 안 한 자>는 '생명 구원에 인색한 자들'이다. 성경에 생명을 구원한 자는 죄를 덮어 주고, 안 한 자는 죄를 덮어 주지 말라고 했다. <생명 구원에 인색한 자>는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자들을 구원시키지 않으니 잔인한 자다. 전도했으면, 그들이 사망으로 안 갔다. 그 피 값은 '전도 안 한 자'가 책임져야 된다.

27. 매년 '한 명'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몇 마디만 해 줘도 전도가 된다. 그런데도 안 한다.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 보아라. 성령님이 다 연결해 주신다.

28. 전도했으면, '관리'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 나간다. 사탄이 잡아간다.

29. <섭리사>가 '이단들'보다 전도를 더 못한다. 주를 제대로 몰라서다. 각 교회 교역자들은 다 파악해 보아라. <전도를 안 하는 자들>이 있으면, 모두 전도하게 해라.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한다. 그래서 그가 하라는 것이다.

30. 전도를 못 하면 지옥에 간다는데도 안 하느냐. 살아서 해라.

31. <주>는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말해 줬다. 그러니 목사들, 강사들, 계시받는 자들 모두 전도해라.

32. 목사들 중에 전도 3명을 못 한 자는 목사가 아니다. 자격이 없다. <교회를 맡은 자>도 전도 7명을 못 한 자는 스스로 내려오든지, 즉시 전도해라. <3년 된 자들>은 1명에서 3명이 기본이다.

33. <휴거된 자들>이 '너무 엄청난 것'을 얻은 것에 비해, '전도'에 있어서 너무도 가난하다. 전도한 대로 선교비도 줘라. 행위대로 하여라.

34. 지도자들, 직책을 가진 자들, 행정을 보는 자들, 국장들 누구라도 전도해라. <전도 안 한 자>는 책임지고 해라. 자기가 조금 강의하고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는 자는 자기가 행정 서류에서 이름을 빼라. 자꾸 이야기들 한다. 거짓은 죄다.

35. <희망과 꿈>을 이루려면, 기본은 '전도'다.

36. 전도해야 핍박도 안 하고, 이단시하지도 않는다. 전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 한마디 말씀은 성령님이 각자에게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37. 10년, 20년 된 자들이 전도를 안 한다. 공적대로, 사명대로 하여라. <지도자들>이 안 하고 어찌 '목표 달성'이 되겠느냐. 지도자들이 하면, '목표 달성'이 된다.

38. 오래됐는데도 전도를 안 한 자들은 머리를 싹 밀고 다니는 자와 같이 보기 싫다. 저마다 '자기 혼'을 보아라.

<2018년 3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한 지구>에 살아도 '낮의 세계, 밤의 세계'가 있듯이, <한자리>에 같이 살아도 '생각'이 다르다.

2. <생각 차이>, <마음 차이>다.

3. <밤>이 가면, 그로 인해 ‘낮’이 온다.
4. 사람은 ‘생각’ 때문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5. 어느 때는 안 했다가, 그 후에 하기도 한다. <생각의 차이>다.
6. <생각의 차원>을 아예 높였으면, 처음에 했을 것이다.
7. <생각의 차원>을 높이려면, 깊이 ‘지혜’로 보아라. 기도하고 ‘영적’으로 보아라. 그러면 미래까지 보게 된다.
8. <생각>이 예리해도, 배우고 지식을 더하여 알아야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분별한다.
9. <지식의 은혜>와 <지혜의 은혜>는 다르다. <지혜>는 ‘슬기’다.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지혜’다. <확인해 보는 것>도 ‘지혜’다.
10. 펜이 안 나오면, 버리지 말고 펜 끝만 갈아 주면 된다. 이는 ‘지혜’다.
11.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지혜’로는 된다. 어떤 것은 <지혜>로는 안 되는데, ‘지식’으로는 된다.
12.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다. <지혜>는 ‘배운 것을 그때마다 쓰는 것’이다. <지혜>는 ‘판단’이다.
13. <지식>이 먼저다. <지식>이 ‘기본’이다. 먼저 계산법을 배워야 계산한다. <글>도 먼저 배워야지, ‘지혜’로는 모른다. <시대 말씀>도 먼저 배워야 안다. <지혜>로는 알 수가 없다.
14. <지식>과 <지혜>는 ‘남자와 여자의 형상’같이 다르다. 고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는 ‘지식의 은혜’를 주고, 어떤 자에게는 ‘지혜의 은혜’를 준다고 했다. 또 어떤 자에게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준다고 각각 말씀하셨다.
15. <지식>은 ‘기본’이고, <지혜>는 ‘배운 것을 그때마다 적절하게 쓰는 것’이다.
16. <명철>은 ‘지혜’와 다르다. <명철>은 ‘총명함’을 말한다. <총명>은 ‘전문적인 단어’다. <총명한 자>가 많지 않으니, 잘 안 쓴다. <지식 있는 자>는 많으나, <지혜 있는 자>는 적고, <총명한 자>는 더 적다. 총명하려면, 기도도 해야 된다. <총명>은 ‘지혜’와 연결된다.
17. <명철>과 <총명>은 같은 ‘방’이다. <지식>이 ‘집’이라면, <지혜>는 ‘좋은 방에 골라 들어가는 것’이다. <명철>과 <총명>은 ‘무엇을 할지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18. 매일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다.
19. <지혜>는 각자 배워야 된다. <실체가 아닌 것>을 ‘지혜’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결해야 된다. <기성>은 성경을 배웠어도 ‘지혜’가 없으니, ‘실체 역사’가 와서 성경을 이루고 있어도 모르고 그냥 있다. <명철>이 어디 있는지 소식도 못 들은 자들이다.
20. 처음에 선생도 10대 때 기독교에서 성경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메시아의 말씀이다. 최고의 말씀이다.” 해서 배웠다. 그때 가르치기를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하기에, 사람은 수만 년 전부터 지구에서 살았다고 하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했다. ‘이들이 잘못 가르치는구나.’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은 ‘지혜’로 깨닫게 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신앙의 조상’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6000년 구원역사가 시작됐다.

21. <지혜>는 ‘하늘’에서 온다. <지식>은 ‘가르치는 자’가 무식하면, 제대로 못 가르친다.

22. 기성은 “말세에 지구 종말이 온다. 지구가 다 멸망하고 끝난다.” 했다. 고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 다 휴거되어 천국으로 간다고 했다. 하나님께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제 생각들이다. 무식한 자들이다. 성경 어디에서 육신이 천국 간다고 했느냐. 어린아이들 같은 생각이다. 휴거 때 ‘영’이 천국에 간다. 천국은 영의 나라다.” 하셨다. 하나님께 또 묻기를, <육>이 ‘휴거 소망’이 차고 넘쳐 살았는데 그러면 ‘육’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은 땅에서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며 살고, 그와 같이 삼위를 사랑하며 산다. 이것이 육적 휴거다.” 하셨다.

23. <기성의 가르침>으로는 휴거가 안 된다. <휴거 소문>을 내는 ‘전초자, 세레 요한 격’이다. <말세>는 ‘구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전환점’이다. 계절과 같다.

24. <성경의 지식>을 제대로 배우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하면, 이것이 곧 ‘지혜의 삶’이다.

25. <명철>하려면, 기도해라. 삼위와 일체 돼라. 이런 자는 ‘신령한 자’요, ‘노력한 자’이다.

26. <성경의 지식의 말씀>을 ‘지혜’로 풀어야 되고, 제대로 읽고 풀어야 된다. <구약인들>같이 ‘문자’ 그대로 풀지 말고 ‘비유’로 풀어라. 성경의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 는 말씀도 인자가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다. <비유>다. <사람>을 두고 비유했다.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다니겠느냐. <메시아>가 ‘비’냐. ‘눈’이나. <메시아를 깨닫고 따르는 자들>을 타고 다닌다. 그들을 자기 육같이 쓰고 땅에 온다.

27. 하나님은 ‘땅에 보낸 메시아’를 자신의 육으로 쓰며, 그를 통해 일을 하신다. 이미 신약 때도 예수님을 통해 이같이 역사했는데 모르느냐. <이 시대>도 하나님은 ‘땅에 보낸 자’를 쓰고 역사하신다. <하는 자>는 안다. 이같이 역사를 해도,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는다. 동물도 비밀을 지키는데, ‘자기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안 지키겠느냐. 제대로 배워야 안다. 배우고 ‘지혜’로 깨달아야 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의 해를 입고 넘어진 자들>로 인해 ‘죄가 없는 자들’이 해를 받기도 한다. <세상에 멸할 것>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다. 먼저 ‘사탄과 악한 영들’을 멸하고 해라. 기도해라. <악한 자들>을 두고 기도하여 전능자가 해결하시게 해라.

2. 매일 배워라. 모르면, 사고 난다.

3. <운전>도 배워야 한다. 다 배우고서 ‘지혜’로 행하기다. 배웠으면, 그때마다 지혜롭게 운전하기다.

4.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있어도 사고 난다.

5. <지혜로운 자>는 겪고, 그것이 ‘해’가 됐으면 다시는 안 한다. 유익이 됐으면, 또 한다.

6. <불의>는 ‘지혜’가 아니다.

7. <지혜>는 ‘할 때 아예 잘하는 것’이다.

8. <성공과 실패>는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조금 더 신경 쓰고 했으면, 잘됐다. 그 차이는 작다. <작은 차이>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

9. <한 번>에 잘해라. 처음에 보통으로 하고 또 다시 하려면, ‘시간’도 배로 더 들고, ‘힘’도 배로 더 든다.

10. 할 때 해야, 잘 보인다. 할 때 눈에 확실히 보인다.

11. 할 때 제대로 안 하면, 사고 나서 다치고 죽기도 한다. <신경>을 제대로 안 쓰고, <사고 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정신 차리고 잘했으면, 사고가 안 났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다 안 쓰고, 태만해서다. 거의 '실수'로 사고가 나고, '기술 부족'이나 '지식 부족'으로 사고가 나기도 한다.

12.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삼위가 보낸 구원자와 늘 일체 되어 행하여라.

13. <순간의 테크닉>, <순간의 지혜>다.

14. <순간>이 '10년'보다 낫다.

15.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는 그때마다 '전쟁 때 칼과 총탄'을 쓰는 것같이 빨리 움직인다. 이같이 사는 자는 '10년'을 살아도, 다른 자가 '100년'을 산 것만큼 살고, 그만큼 얻는다.

16. 안전하게 걸어서만 가면, '인생 해'가 진다. 성공하고 누릴 시간이 없다. 고로 뛰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 놓고 찬스(chance)를 보면서 과감하게 모래밭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험해도 지름길로 가기도 해야 된다.

17. 순진하게만 하면, '작은 고기'만 잡는다. <큰 고기>가 있으면, 과감하게 뛰어들어 '큰 고기'도 잡아 보아라. 다만 '기회'도 있어야 하고, '기술'도 있어야 된다. <월명동>도 이같이 했다. 과감하게 '바윗덩이'를 사다 쌓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바위는 조경에 안 어울린다고 하며 안 썼다. 바위를 세우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하며 순진하게 안 했다. 하나님은 '큰 바위를 가지고 세우는 것'을 '최고 작품'으로 구상하시고 행하셨다. 전체를 보면, 고래나 상어 등 각종 고기들이 바다에 모여 있는 것 같다. 과감한 투자였다. 돌을 '10개 살 값'으로 '1개'를 사 왔다. 이같이 교회도 '7개'씩 모아서 '큰 교회'를 샀다. 모험도 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배운 대로 확대해서 한 것이다.

18. 가물어도 '연못과 호수'를 파 놓으면, 때가 되면 꼭 비가 오니 물이 고인다. 이런 때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19. <구시대>는 2000년 동안 터가 담긴 곳에서 안전하게, 순진하게 목회를 했다. 월명동 석막리 마을에서 난 다른 자들이다. 선생은 '새 땅'에서 모험을 했다. 21년 동안 산(山)기도를 하며 탐험을 했다. <담대한 새 시대 모험>을 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다. 이미 선조 때 약속하신 일들이었다. 혼자 담대히 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맞춰다 했다. <골짜기의 물>이 모두 낮은 계곡으로 모여 내려오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1000년 역사'를 시작하도록 <시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셨다. <새 역사>는 <해>가 '동에서 뜨는 역사'다. 이미 열매를 거둬들이고, 나머지도 열매가 익어 가고 있다.

20. <모르는 자들>은 그들이 속한 곳이 '역사'라고 주장하나, 역사가 아니다. <아는 자들의 역사>다.

21. <구시대>는 '시대 해 그늘'에 서성댄다. 그 2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시대 역사의 주인들로 삼아야 된다. <서산마루에 서성대는 자들>은 와도, 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젊었을 때 그리 불렀어도, 자기 할 일만 했다. <자기 할 일, 구시대 일>에 자기 희망을 다 쏟았다. 고물차를 고치는 데 시간이 다 간 것이다. <새 시대, 새 차>가 있으니 타기만 하면 됐건만 '지혜'가 없으니 '시대 운'을 못 탄 것이다. 모르는 것같이 역올한 것도 없다.

22. <구시대>와 <새 시대>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23. <땅>에서 '영원한 것'이 다 결정된다. 이는 '만들 때 다 결정된다.'는 말이다.

24. <땅>에서 '구시대'에 속해 살면 '구시대 영계'로 가고, '새 시대'에 속해 살면 '새 시대 영계'로 간다. <땅에서의 위치>가 '하늘에서의 자기 영의 위치'다. <구약인들>이 새롭게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님 주관권'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

시대도 그러하니라.

25. 배워야 안다. 배워도 잊으면, 소용이 없다.

26. <지혜>가 없으면 ‘분별’을 못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그러니 <안 해도 유익인 일>을 해서 ‘해(害)’가 된다.

27. <지혜>는 ‘분별’이다.

28. <한 장소>에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으니, “다 좋지 않다.” 하며 막지 말고, 개발하고 좋게 만들면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장단점이 있으니, 만들면 된다.

29. <월명동>도 ‘단점’이 많았다. 모두 개발하여 만들었다. 이같이 <생명들>도 ‘장단점’이 있어도 다 만들면 된다. <인물>도 크면 다 변화된다. <소나무>도 퇴비하면 ‘월명동 소나무’같이 전혀 다른 형상과 모양으로 수형이 좋게 변화된다. 수백 년 된 소나무보다도 더 대(大)결작이 됐다. 키워서 그러하다.

30. <천국의 빛나는 영들>도 본래 그런 영이 없었다. 그 육신은 초라해서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예수님>도 겉으로 보기에는 볼 만한 것이 없었다. 크니, ‘메시아’가 되고 ‘해’ 같이 됐다.

31. 월명동 앞산, 뒷산에 있는 ‘결작 소나무’도 30년 전에는 모두 잘 안 보던 ‘일반 소나무’였다. 택해서 계속 퇴비하고 키우니, ‘거목’이 되었다. 다른 것은 지금도 보통이다. 저마다 <자기>를 키워라. 계속 관리하여라.

32. <거목>이 되면, 변화되어 어릴 때의 모습이 없다. 그러니 어릴 때 모습만 보고 인식하지 말아라. 후배들이 자기보다 더 큰데도 흠을 잡는다. 소경들이다. <기성>도 ‘섭리사 어릴 때’를 보고 늘 그리 생각한다. 교회가 작으냐? 말씀 차원이 낮으냐? 인물이 못하냐? 사명이 못하냐? 천국의 차원이 낮으냐? 계산을 전혀 못 한다. <새 역사의 일>을 하기도 바쁘니, 천 년 길만 갈 뿐이다.

<2018년 3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길들이기에 달렸다.

2. <짐승>도 길들이는 대로 한다. 길들인 대로 하니, 신기해서 가까이하며 사랑으로 키운다.

3. <길들인다는 것>은 ‘만든다는 것’이다. <물건>도 만든 대로 존재한다.

4. <사람>도 길들이는 대로, 만드는 대로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말씀’으로 만드시고 길들여 쓰신다. 이를 “변화시킨다. 부활시킨다.” 라고 표현하셨다.

6. 삼위는 ‘삼위가 원하시는 대로’ 길들이신다. 그 마음에 합당하게 만드신다. <하늘에 속한 형상과 모양>으로 육과 영을 만드시고 길들이신다.

7. <짐승>은 지능이 낮아서 만들고 길들였어도 본능을 드러내며 ‘제 행동’을 하고, 혹은 물기도 한다.

8. 길들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뇌’가 그쪽으로 조직된다. 고로 그것만 생각한다.

9. <사람>은 자기가 만들고 길들인 대로 그것이 ‘제2의 천성(天性)’이 되기도 한다.

10. <길>은 반복해서 들인다.

11. <지능이 높은 짐승>은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 한다. 다만 어떤 것은 길이 빨리 들기도 하고, 반면 어떤 것은 길이 늦게 들기도 한다.
12. <곤충>이나 <파충류>도 길을 들이면, 자기 지능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기 지능 안’에서 그 행동들을 돌려 가며 한다.
13. <곤충>이나, <파충류>나, <날짐승>이나 모두 ‘그 지능 안’에서 길들인 대로 그대로 한다. 길들인 대로 표가 나게 하니, 보면 신기한 것이다.
14. <사람>은 ‘배우고 행함’으로 길들이고 만들어서 변화시킨다. 자기를 길들이고 만들어 놓으면, 매일 자기를 길들이고 만든 대로 행하며 산다.
15. <신앙>도 길을 잘 들여야 한다. 능력이 있을 때 안 만들어 놓으면, 변화되지 않은 채 살게 된다.
16. <지역>은 ‘만드는 것’이 ‘길들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을 개발했다.’ 혹은 ‘지역을 발전시켰다.’ 한다.
17. <사람>은 ‘변화’를 안 시키면, 마치 개발할 곳을 개발하지 않고 쓰는 것과 같다.
18. <지능이 높아지는 것>은 ‘뇌의 한계’가 있다. <인간의 욕>은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인간을 가르치시고, 만드시고, 길들이신다. 그러나 <영>은 무한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 영을 ‘삼위의 형상과 모양’으로 한없이 만들고 변화시킨다.
19. 지역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상’이다. 그 지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 것이냐에 따라 ‘아름다움’이 더욱 좌우된다.
20. <사람>도 ‘무엇을 목적하고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1. <사람>은 ‘사명’대로 만든다. 하나님은 ‘사명’대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길들이신다. 하나님은 한번 사명을 주시면, 일생을 두고 거의 변경하지 않으신다. <일반 사명>은 가다 변경하기도 하신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길든 대로’ 거기에 맞춰 하신다.
23. <자기>도 길들인 대로 한다. 고로 자기를 ‘영적’으로 길들이면, <영적인 자>가 되어 한다.
24. <육적인 자>는 자기를 ‘육적’으로 길들여서 육적인 자가 된 것이다. <동성 길>, <이성 길>도 모두 그리 길을 들인 대로 가는 것이다.
25.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정한 날’에 심판을 받는다. 고로 저마다 길을 잘못 들이면, 육도 영도 사망으로 가서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자기가 길들인 대로 해야 되기에 그같이 살아간다.
26. <나쁘게 길들이고 만든 것>은 시간이 지났어도 꼭 고쳐야 된다. 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나쁘게 길이 들고 만든 것이라서 시간이 지났어도 꼭 고쳐야 된다.
27. <종교>도 길든 대로, 만든 대로 따라간다. <뇌>가 그렇게 변해서다.
28. <생활 습관>도 모두 길든 대로 한다. <음식>도, <생각>도, <운동>도,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하다.
29. <길이 든 자>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자’다. <천>을 가지고 ‘신발’로 만들고, ‘옷’으로 만들고, ‘커튼’으로

만든 자와 같다. 혹은 <나무>를 가지고 ‘의자’로 만들고, ‘밥상’으로 만들고, ‘나무 공예품’으로 만든 자와 같다. 아예 그같이 만들어 버렸으니, 그것을 가지고 달리 써지겠느냐.

30. <종교>는 마치 종이에 그림을 그린 것같이 됐다. 그러니 ‘그려진 그림’대로만 본다. 종이에 ‘글’을 써 놓은 자는 평생 ‘글’로만 보고, ‘그림’을 그려 놓은 자는 평생 ‘그림’으로만 본다.

31.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대로, 메시아는 메시아의 사명대로 한다. 모두 ‘그 사명대로’ 한다. 고로 하나님은 사명대로 만드시고, 만든 대로 쓰시며 보이신다.

32. <같은 철>을 가지고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든다.

33. 아니라고 막아도, 하나님은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메시아는 메시아대로 각종으로 그 사명대로 쓰신다.

34.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를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

35. <월명동>도 만들어 놓으니, 부정하던 자들도 인정한다. <하나님의 사명>도 그러하다. 부정했어도, 그가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하니, 인정한다. 다만 자기가 싫으니 안 따라온다.

36. <따르는 자들>은 더 표 나게 사명을 하기를 원하고, <반대자들>은 사명을 하면 막고 부정한다. 고로 그는 반대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물’이 ‘피’가 되게 하여 각종 재앙으로 말없이 행한다. 사명대로 주관하기 때문이다. 성경대로 그 사명을 하니, 모두 두려워했다고 했다. <모세>도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 이집트의 바로 왕은 “내 백성이다.” 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0가지 재앙으로 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다.

37. <생명들>을 구해야 하니, 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치신다. <사탄>이 생명들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명들도 자기가 ‘사탄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

38. 저마다 자기를 만들고 길들여서 ‘가나안’을 이룬다.

39. 하나님은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만든 대로 쓰신다. 매일 자기가 만들고, 길을 들여라. 그러면 그 그릇대로 쓰신다.

40. <때>를 따라 만들어라. 지금은 <신부 시대>다. 그러니 ‘신부’로 만들어라.

41. 사랑해야 ‘신부’가 된다. 되려고 원하기만 하지 말고, 행하여 만들어라. <자기 생각, 성품, 행위들>이다.

42. 자기 행위대로 욕도, 혼도, 영도 만들어진다. 자기 행위대로 ‘지옥의 영, 사망권의 영’으로 만들어지고, 혹은 ‘천국의 영, 황금성 천국의 신부의 영’으로 만들어진다.

43. <말씀>으로 욕도, 혼도, 영도 만든다. <말씀> 때문에 ‘황금성 천국의 영, 신부의 영’으로 만들어진다.

44. <우상 종교>는 ‘우상인’으로 만든다.

45. <시대 말씀>은 ‘그 시대 메시아’가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온 자>만 안다. <다른 교파, 다른 종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도, 주인이 아닌 고로 ‘시대 신부의 영’으로 절대 못 만든다.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

46. 섭리사를 나간 자들 중에도 자기가 사명자라며 가르치는 자가 있기에 심판했다. 모두 ‘종교의 거지’가 됐다. <물>이 ‘피’가 되게 육적 심판도 했기에 다 받아야 된다. 그 외에 섭리사에 오지도 않고 말씀만 이용한 자들도 물이 피가

되게 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그 시대 보낸 자’에게만 주신다.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안 되는 것>도 구분해서 하면 된다.
2. <마음>만 가서는 안 된다. <행동>이 가야 된다. 그런데 <기도>는 ‘마음’만 가도 된다. 고로 하나님께 이 잠언은 좋은 데 못 쓰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구분해서 쓰면 되지.” 하셨다.
3. 어떤 일은 ‘마음’만 가도 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행하기 전에는 되는 일이 없다.
4. <기도>는 ‘마음’만 가도, 자기 혼과 영이 가서 돕고 해 준다.
5. <마음>이 가면, ‘행동’이 되는 것도 있다. <의로운 마음>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늘 가는 대로, 마음으로 행한 것이 된다.
6. <마음>만 가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듣고 해 주신다.
7. <마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8.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한 번만 했어도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고로 하나님은 기어이 사랑으로 갚아 주신다.
9. 성령님께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성령님은 종일 좋아하시고 챙겨 주신다. 한마디만 해도 그리 크다.
10. <행동>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해 행하면, ‘10가지’는 도우시고 말씀하신다.
11.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 성삼위를 사랑해라. <성삼위를 사랑해서 행한 일>은 다 공적으로 남아진다.
12. 누구든지 시대 말씀을 듣고, 보낸 자를 믿고, 매일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대화하여라. 삼위도 주도 대화를 허락하신다.
13. <영원한 대화의 보물>이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욕을 쓰고 지난 10년 동안 편지로 대화하셨다. 황금기였다. <삼위>도 사귀고, <주>도 사귀는 최고 황금기였다.
15. <독수리>는 감혀 있을 때 가까이 보고 알 수 있다. 그때가 기회다. 벗어나면, 하늘 높이 난다.
16.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 하늘 편이 어려움을 당할 때다.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다.
17. 구분해서 하면, 안 되는 것도 된다.
18. 쪼개서 하면, 불가능한 일도 된다.
19. 나눠서 하면, 된다.
20. 방법을 달리하면, 불가능한 것도 된다.

21. <선>과 <악>을 쪼개기다.
22. 불쌍해도 쪼개고, 만나서는 안 된다.
23. 병들어 불쌍하다고 만나 주고서 고통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도와주기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24. 안쓰럽다고 만나도 안 된다. 안 만나고 기도만 해 줘도, 하나님이 다 치료하신다.
25. 안 만나도, <사랑>도 다 해 주신다.
26. 하나님이 하늘에서 친히 안 내려오시고 말씀만 하셔도 다 된다. <이 시대 사명자>도 그러하다.
27. <권위>와 <위치>가 그리 중하다. 사명대로 '자기 권위'도 지켜야 된다.
28. <토끼>가 노는 곳에 <호랑이>가 가면, 울무꾼이 놓은 토끼 울무에 발이 얹힌다.
29. <자기 위치>에서 살고, <자기 위치>에서 놀기다. <코끼리>와 <개미>가 같이 놀면, 개미는 밟힌다. 코끼리는 밟았는지도 모른다.
30. <트럭>에 <자가용>이 부딪히면, 자가용에 탄 자들이 많이 다친다.
31. <자기를 만든 자>는 날면서 행하니, '땅에 속해 행하는 자들'보다 사고가 없다.
32. 자기 연륜이 10년, 20년 됐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자기를 만들어라.
33. 자기에게 온 사탄을 이겨라. 인(人)사탄을 이겨라. <사탄>은 '사람'을 쓰고 나타난다. 자기가 조건을 주니, 사탄이 그 사람을 쓰고 나타난다.
34. <삼위와 주>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탄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기어이 허리를 분질러 놓고 도망간다. 다 '자기 부족, 지혜 부족'이다. 자기가 주의하지 않아서다. 그래도 <주>는 그런 자들을 다 고쳐 준다.
35.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사고 나고, 고생도 한다.
36. <주와 일체 된 자>는 안전하다.
37. 어려울 때만 주를 찾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것은 늦어서 안 된다. 늘 주를 찾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해라.
38. 미리 해야 많이 한다.
39. 급하면 생각이 안 나고, 생각났어도 일이 안 된다.
40. 하나님은 모르게 일을 시키신다. 알면, 당황하기 때문이다.
41.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행하신다. 삼위와 일체 되어 행해야, 겪고 난 후라도 알게 된다. ◎ 나머지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와 일체 돼라.” 라고 말씀하면, 왜 그런지 설명하지 않으신다. <주와 일체 되어 행한 자>만 ‘왜 주와 일체 되라고 했는지’ 알게 된다.
2. <성령>과 일체 돼라. 종일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해라.
3. <이 시대>는 성령님이 ‘주’와 함께 다니신다. 고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주’가 계시고, <주>가 계시는 곳에 ‘성령’이 계신다.
4. <주 말씀>을 믿고 행해라. <믿고 행한 자>만 안다. 이는 ‘세상에 태어난 자만 세상을 본다.’라는 말과 같이 확실하다.
5. 하라고 했으면, 해라. 해야, ‘답’이 온다.
6. 한번은 성령님께 한 생명을 두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지 물으니, 계속 편지해 주라고 하셨다. 편지를 해 줘도 안 된다고 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끝까지 지켜라.” 하셨다. 고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계속 편지했더니, 그 생명이 방향을 돌리게 됐다. 하라고 했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답’이다.
7. <답>은 ‘자기가 할 일’을 가르쳐 준다.
8. 가령 쌀이 없다고 하면, “농사를 지어라.” 혹은 “일을 해라.” 한다. 안 하면, 얻지를 못한다. 삼위는 ‘방법’만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줄 것’을 주기도 하신다. 때마다 합당한 대로 하신다.
9. 삼위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도해야 된다. 끝까지 진정으로 해야 된다. 물에 빠졌으면, 물에서 나올 때까지 기도다.또 “걱정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10. <서운함이 있는 자>는 ‘주’께 말해라. 몰라서 못 해 준 것도 있으니 알고 다른 방법으로 해 주려고 하고, 혹은 달리 해 줬는데 본인이 모르는 것도 있으니 알게 하려 함이다. 어떤 자는 ‘왜 그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 주지?’ 한다. 그 사람은 공적을 거기에 썼고, 본인은 다른 데 썼기 때문이다. 고로 각종으로 분별해야 된다. 아무 공적이 없으면 미리 해 주기도 하고, 공적을 쌓은 후에 해 주기도 한다. 그러니 일단 자세히 사연을 물어보아라. 기도하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다.
11. 어떤 자는 ‘최고 합당한 때’에 주려고 안 주기도 한다.또는, ‘일부러 안 주는 때’도 있다. 이는 가치를 몰라서다. 구하지 않아서다. 또는, ‘더 큰 것’을 주려고 ‘작을 것을 줄 때’는 안 주기도 한다. 신발 창고가 문을 열 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자는 달라고 안 하니,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또 어떤 자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주시지?’ 한다. 잘하라고 주는 것이다. 이같이 <주는 방법>은 ‘수만 가지’다.
12. <안 해 준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다. <짝사랑을 하게 한 자>는 안 해 준다.
13. <구한 자>에게는 다 해 줬다. <안 해 준 것>은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성령께 말해라.
14. <명청해도 끝까지 간 자>가 ‘지혜롭다고 해도 포기한 자’보다 훨씬 낫다.
15. <미련한 자>는 미리 안 한다.
16. <지혜 있는 자>는 ‘지적하기 전’에 한다.
17. 쫓길 때 뛰지 말고, 안 쫓길 때 뛰어가 버려라.
18. 해 놓고 따져라. <했느냐, 안 했느냐>만 묻는다.

19. 포기하려면, 해 보고 안 됐을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포기해라.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고서 ‘오늘은 잠언 계시 쓰기 어렵겠다.’ 생각하고 성령님께 “포기할까요?” 하고 물어보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는 데까지 해라. 한 개라도 써라. 한 개라도 안 쓰면, 포기한 것이다.” 하셨다. 고로 잠언을 쓰기 시작해서 아침 7시까지 60개를 썼다.

20. 어느 때는 성령님께 “10분밖에 없는데 오늘은 포기할까요?” 하니, 성령님은 “너는 포기해도, 나는 포기 안 한다. 써라.” 하셔서 잠언을 쓰기도 했다. 이때는 <잠언 100개>를 묶어서 ‘한 잠언’으로 주셨다. 고로 그 잠언이 ‘한 설교’가 되고, ‘100 잠언’이 되었다. 이같이 끝까지 ‘성령님의 방법, 하늘의 방법’으로 해라.

21. 한번은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잘 안 그려져서 ‘다른 그림을 그리라는 계시인가?’ 하고 성령님께 물으니, “잘 안 그려진 그림은 찢어라.” 하셨다. 고로 종이를 찢는데, 마치 물이 묻은 종이가 찢어지듯 찢어졌다. 그때 깨닫기를 ‘이런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아까우니, 이 종이에 그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구나.’ 했다. 종이가 깨끗하고 희고 커서 그린 것이었는데, 종이 질이 나쁘니 붓을 흔들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게 하신 것이었다. 고로 바로 종이가 조금 작아도 ‘질이 좋은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 모두 ‘마음의 질’이 좋아야 하나님이 잘 대해 주신다. <생각>도, <행위>도 ‘질’이 좋아야 된다.

22. ‘나는 왜 큰 것을 안 해 줬지?’ 하지 말고, <해 준 것의 가치>를 알고, <질>을 보아라.

23. <지혜>는 물 위에 배를 띄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24. 삼위도 주도 ‘구하는 자’에게 준다. 10년간 기회를 줬다. 구한 대로 합당하면 다 해 줬다. 황금기였다. <구하지 않은 자>는 이유가 어찌 됐든 안 해 줬다. ‘주가 십자가를 지는데 어찌 구하지? 나는 공적도 없는데...’ 했어도 원하면 구한 대로 해 줬다. 고로 “황금기였다.” 한 것이다. 그때는 갔다.

25. 늦게 일어났어도 기어이 말씀을 썼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라.” 하시면, 이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26. <밀>에 처할 줄 알아야 <위>에도 처할 수 있다.

27. <위>에만 오르려 하지 말고, <밀>에서도 해라. 두 가지를 잘해라.

<2018년 3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몸>은 그 형상이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백 가지다.

2. <마음의 작품>, <생각의 작품>을 보아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아라.

3.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신다. 썩어서 아예 못 쓰기 전까지 퇴비하여 과일을 키우듯 하신다. <사탄의 것>이 안 되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신다.

4. 만일 아예 썩어서 못 쓰게 되어 버리면, 실상 사탄도 못 쓴다. 마치 <기계 주인>이 ‘자기가 쓰던 기계’가 고장 나서 버리면, 그것을 주워 가는 자도 기계가 고장 났으니 쓰지 못하는 격이다.

5. 하나님이 더 이상 썩어서 못 쓰겠다고 하는 육이나 영은 실상 다른 자들도 못 쓴다. 사탄도 쓰지를 못한다.

6. <지옥에 간 영>은 사탄도 못 쓰고, 사람도 못 쓴다.

7.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됐다 하자. 이미 시체가 됐으니, 악한 자도, 사랑하는 자도 그 ‘육’은 쓰지를 못한다. 이같이 지옥에 가면 <사람의 영>도 ‘불에 탄 종이’같이 재만 남은 격이 되어 아무도 못 쓴다.

8. 인간이 타락하면, ‘쓸 자’가 못 쓰게 된다. 병들면, ‘쓸 자’가 못 쓰게 된다.고장 나면, ‘쓸 자’가 못 쓰게 된다.깨지면, ‘쓸 자’가 못 쓰게 된다. 변질되면, ‘쓸 자’가 못 쓰게 된다. 다시 원상으로 돌려야 된다.
9. <죄>를 지었으면, ‘회개’다. <물건>이 고장 났으면, ‘고치기’다.<병든 자>는 ‘치료해서 고치기’다.
10. 회복이 안 되면, 못 쓴다. 그대로 ‘사망’으로 가서 죽으니, 육도 영도 못 쓰게 된다.
11. 어떤 자는 <육>이 사망권에 속해 못 쓰게 됐어도, <영>은 회복하기도 한다. 다만, 회복됐어도 ‘큰 자’로 쓸 수가 없다.
12. <깨진 것>은 ‘다시 만들기’다. 전보다 더 잘 만들어야, 쓰는 자가 좋아서 쓴다.
13. 하나님은 ‘전자’보다 ‘더 좋은 후자’를 택해서 쓰신다.
14. <더 좋은 자>가 오면, ‘과거의 것’은 생각에서 지워진다.
15. 하나님은 역사도, 사람도, 물건도 깨져서 없어지듯 하면 ‘더 좋은 것’을 만들고 행하신다. <더 좋은 자, 더 아름다운 자, 더 가치 있는 자>를 만들고 행하신다.
16.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도 ‘깨진 돌’ 대신 10배 더 크고, 강하고, 좋은 ‘결작 돌’을 사다 세웠다. <더 좋은 것>으로 쌓으니, 과거의 깨진 돌은 잊었다.한번은 석회석 큰 것을 세워 놓고 모두에게 자랑했다. 모르니, 모두 “으앗! 작품이다!” 했다. 넘어져 깨지고서 누가 볼까 빨리 치우고 ‘더 좋은 돌’을 사러 다녔다. 돈이 문제지, ‘더 좋은 돌들’이 너무 많았다. 고로 <자연석>을 사다 그 자리에 세웠다. 야심작 상단에 세운 ‘오석, 호피석, 애석’이다. 앞면은 좁고, 옆면은 넓다. 이 돌을 두고 ‘전에 세웠던 큰 석회석’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라고 하니, 모두들 전보다 10배는 더 좋다고 했다. 누구도 그 전의 석회석이 좋았다고 하는 자가 없었다.이같이 하나님은 ‘더 좋은 후자’로 하신다.
17. <역사>도 ‘더 좋은 역사’로 하신다. 그러니 ‘구시대 신약역사’ 보다 ‘새 시대 성약역사’가 얼마나 더 좋겠느냐.
18. <구시대로 간 자들>은 뻔하다. <옛날에 살던 곳>으로 갔으니,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가서 보지 않아도 ‘생각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다 느낀다.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라.
19.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자기가 나갔으니 섭리사에 큰 타격이라고 했다. 이제 섭리사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셨으면, 그들의 말대로 섭리사가 안 됐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고, 섭리사에서 주와 함께 역사를 펴셨다. <사랑의 역사>를 펴니, 나간 자들 대신 ‘더 좋은 후자’가 와서 주와 함께 행하고, ‘이미 있던 자들’이 더 변화되어 주와 함께 행했다.
20. 월명동 야심작도 ‘깨진 돌들’은 다 꺼내고, 그때 당시 제일 좋은 돌들로 다시 쌓았다. 또 월명동에 사다 놓은 ‘결작 돌들’이 곳곳에 들어가게 했다. <성자바위>와 <큰바위얼굴바위>만 남기고 밥상바위, 부활돌, 그 외에 20여 개의 결작 돌들이 투입됐다. 아예 고정시켜 뒀다. 이 돌들은 현재도 구하기 어려운 ‘결작 돌들’이다.<밥상바위>는 섭리사 부역에서 ‘말씀 양식’을 받아 주면, 주와 같이 말씀의 밥을 해 주는 자를 상징하는 바위다. 아직 쌓지 않은 결작 돌들은 ‘제 위치에 쌓아서 기쁘게 할 것이다.
21. <소나무>도 죽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그 위치에 심었다. <용틀임 소나무>다. 전에 있던 소나무가 죽어서 그 대신 ‘용솔’을 심었다.
22. <교회>도 옛것은 바꾸고 ‘더 좋은 것’으로 한다. <3단계>로 더 좋게 역사를 한다. <주님의교회>도 ‘3단계’로 했다. <세 번째>가 ‘가나안 복지 형’이다.<3.16 휴거기념관을 지은 자리>도 <3.16 휴거기념관>이 ‘세 번째 건물’이다. 처음에는 천막이었고, 두 번째는 조립식 가건물을 지었고, 세 번째에 ‘3.16 휴거기념관’을 지었다.<연회장>도 ‘세 번째에 쌓은 연회장 작품’이다. 그전에는 임시로 두 번을 쌓았다. <호수 옆 대(大)폭포수>도 ‘세 번째’에 쌓은 것이다. 그전에 임시

로 두 번을 쌓았다. 잔디성전 옆 <제1폭포>는 아예 한 번에 하나님의 구상으로 했다. <성전 안쪽 북편 돌 조경 작품>도 ‘세 번째’에 쌓은 것이다. <기도동산 왕관 작품>도 ‘세 번째’에 했다. 그전에 임시로 쌓고, 15년 만에 허가가 나서 쌓았다. <동북편 돌 조경 작품>은 한 번에 쌓은 곳이다. 그때 앞산 야심작에 돌을 쌓으며 많이 해 봐서 유능하게 ‘한 번’에 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구상을 주셨다. 이같이 <신앙>도 그러하다. 각자 자기 신앙을 보면, ‘세 번째’에 완성한 자가 있고, ‘한 번’에 완성한 자가 있다.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옥>에서도 ‘천국’을 모르고, <천국>에서도 ‘지옥’을 모른다. 서로 딴 세상이기 때문이다.
2. 사람들도 ‘사는 곳’이 다르면, 서로 모른다. <사는 곳>이 같아도 말 안 하면, 서로 모른다.
3. <지옥>에 살아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각 살아가듯 각각 사니, 서로 모른다.
4. <지옥>도 다 다르다. 고통의 강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고통을 받는 방법도 다르다. 지옥의 어떤 곳은 영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어떤 곳은 불 속에서 뜨거우니 소리를 지르고 있다. 또 어떤 곳은 매일 맞기만 하고, 어떤 곳은 끝도 없이 떨어지기만 한다. 떨어지는데, 마치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듯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 어떤 지옥은 끔찍하다. 고로 소리만 나지, 서로 안 보이니 부딪힌다. 소경들 같다. 어떤 지옥은 혼자만 있는 곳도 있다. 평생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있다. 사람들을 찾는데, 천 년을 찾아도 단 한 명도 없다. 혼자 중얼대며 소리를 지르고 다닌다. <지옥>은 세상에서 육신이 행한 대로 간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외면한 자들은 지옥에서 ‘외로운 고통’을 받는다.
5. 어떤 지옥은 씻물이 펄펄 끓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자들’이 다 거기에 가 있다. 세상에서 쇠로 만든 신상,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 금칠을 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만든 신상을 섬긴 자들이다. 이단들도 거기에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늘 선지자들과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말씀하셨듯이, ‘우상을 섬긴 자들’은 세상에서도 쫓겨나고, 그들의 자녀들도 쫓겨나고 받는다.
6. 어떤 영은 지옥에서 펄펄 끓는 씻물을 물 먹듯이 먹는다. 이단이나 우상을 섬긴 자들이다. <영>이라 죽지도 않고, 영원히 뜨거운 씻물을 먹는 고통을 받는다. 육신이 불에 타면 고통을 느끼듯, 영도 그같이 고통을 느낀다. 어떤 영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을 그제야 알고 잘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온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그리 깨우쳐 주셨는데도 안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야기해 줘어도 안 믿어서다. 수백 번 기회를 주고 말해 줬다. 혹은 말은 안 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다.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을 알고도 안 믿은 것이다.
7. <우상을 섬긴 자들>은 자기가 믿던 우상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섬기던 자가 우상인 줄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메시아를 섬기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자기가 섬겼던 자’가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다. 거기서도 씻물을 마시며 그 우상을 섬긴다. 마치 씻덩이로 용접해 놓은 것같이 서로 붙여 놓아서 영원히 그리 살아야 된다. 고로 서로 괴롭고,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 이는 마치 서로 원수가 돼도,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격이다. 부모가 “저놈 나쁘다.” 하고 이야기를 해 줘어도, 부모 말을 안 듣고 사랑한다고 결혼하고서 그 세계에 가서 사는 격이다.
8. 지옥의 가짓수는 셀 수도 없다. 어떤 곳은 100년, 1000년 동안 물을 못 먹고 목이 타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기도 한다. 하나님께 그리 대한 것이다.
9.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평생을 배워도 모른다. 세상 임금을 비유로 들어 깨우쳐 주나, 그 정도가 아니다. <세상 왕들>이 태양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세상 왕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냐. <세상 왕들>은 역시 ‘사람’이다. 사람과 똑같다. <세상 왕들>을 수백 명씩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기들’에 불과하다.
10.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니, 그 행하심이 다르다.

11. <사탄>은 이미 악으로 살아서 ‘지옥의 영’이 됐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

12.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더 고통을 주기도 하신다.

13.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잘해 주고 사랑해 주니, 두려움을 모르고 기어올랐다. 변질되기 전, 천사였을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살고,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니 두려움을 몰랐다. 하나님 옆에서 오래 모셨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것이다. 아예 수백만 배 밑에서 하나님을 모셨으면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4.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자를 창조한다고 하니 반대하고 싫어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찬성하며 “예!” 했어야 했다. 하나님 옆에서 수종을 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함’을 몰랐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도 몰랐다. <사랑의 존재자 하나님>은 ‘사랑’으로만 대하니, 두려움과 떨림을 모르고 교만으로 대한 것이다. 고로 루시퍼는 쫓겨남을 당했다. 쫓겨났는데도 아담과 하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다. 고로 하나님은 씻물이 끓는 지옥에 완전히 가두셨다. 그래서 지옥이 생겼다.

15. 루시퍼는 처음에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고 깨뜨리니 ‘사탄의 근본’이 되었다. <사탄의 말>을 듣고 꾀를 받아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행하면, 지옥으로 간다.

16. 루시퍼는 그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도 모르고 ‘절대 순종’도 몰랐다. 이같이 메시아 앞에도 친하다고 제 생각대로 하면, 루시퍼같이 된다.

17. 친할수록 잘해라.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아라. 그들 중에 친하게 지내지 않은 자나 사랑받지 않은 자가 없었다. 주와 친하게 지내니, 기어오르고 두려움으로 보지 않았다. 메시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 하나님은 그의 욕을 쓰고 행하시니, 다르다. 다투도 ‘친하게 가까이 있던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원수가 됐다.

18.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메시아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다 후에는 끼리끼리 모여 욕하고, 악평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기’처럼 취급하고 무시했다. 자기가 세상에서 학문을 더 배웠다고 하며, 선생에게 못 배웠다고도 했다.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리했다. 친하게 대해 주고, 친구같이, 형제같이 위해 주고, 사랑해 주던 자들이다.

19.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셨다. 주를 무시하고 나가서 세상에서 뭐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보낸 자’를 쓰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욕계나 영계에 대해 얼마나 알겠느냐. 세상 학문을 했다고, 그 간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대하여 교만하게 행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20. <메시아>를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니, 두려움을 모른다. 마치 독수리 앞의 다른 날짐승들이나 같다. 고로 말없이 그들을 낮춘다. <주인>이 ‘기르던 개’를 사랑해 주니, 방으로 막 들어왔다. 고로 주인이 밖에서 매어 놓으니, 그제야 주인을 달리 보고 대했다.

21. <예수님 때>도 ‘구시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무시했다. 나사렛 시골에서 난 자가 뭘 아냐고 하며 교만하게 대했다. 그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시고 선(善)으로 대해 줬다.

22. 가까울수록 두려움으로 모시고 섬겨라.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메시아’를 제일 크게 보신다. 나머지는 다 지체들이다. 오직 ‘그’만 머리다. 하나님은 ‘그의 욕’을 쓰고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 근본의 말씀들을 하신다. 그를 통해 세상의 심판을 논하신다. ◎ 나머지 잠언은 내일 이어서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심판하셨어도 다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신 일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는다.

2.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메시아’를 대한 대로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성자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하시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셨다.
3. <역사>를 보면, ‘왕과 가까이 지낸 자들’이 왕을 배신했지, ‘백성들’은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 <왕을 가까이에서 대한 자들>이 왕의 생활을 안다고 하면서, 흠을 잡고 대항했다. 그러다 죽기도 했고, 혹은 쫓겨나고 상대방에 가서 악평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주를 자기 몸으로 쓰시니, 주를 그리 대하는 지체들을 심판하신다.
4. <주의 머리>는 ‘하나님의 육의 머리’다. 고로 <주>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들은 안 버리신다. 선지자 때는 선지자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는 안 버리셨다.
5.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가까이 대해 주니 기어올랐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행하시는데, 사울은 자기 자리만 생각했다. <사울 왕>은 ‘생각의 불구자’였다. 어리석었다. 결국 사울 왕도 그 행위대로 받고 끝났다.
6. <머리>가 봐야 안다. <지체>는 정말 모른다. <지체>는 ‘머리’가 아니니,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7.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처음에는 주를 두려워하고, 감격해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며, 옆드려 절하고 했다. 그러다 신앙이 식으니, 점점 육성으로 대했다. 자기 주관을 내세우며 “이리하자, 저리하자.” 했다. 자기 정신을 잃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을 잃은 자들을 보면, 바로 안다.
8. <주의 말>은 ‘생명’이다. 안 들으면, 마치 ‘철길을 벗어난 열차’와 같다. 고로 전복된다. 그 좋은 열차가 다 망가졌는데 고치지 않으니, 못 쓴다. 오직 ‘주’만이 고친다.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고치면 쓰고, 안 고치면 못 쓴다. 행위대로 고치기도 하고, 안 고치기도 한다.
9. 사울은 다윗을 무시했다. 고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조종하여 전쟁 때 안 나가고 안 싸우게 했다. 사울은 모른다. 하나님이 작전하시니, 결국 사울 왕을 패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다. <악인>은 예정됐다. 그 정한 때가 돌아온다. <악인들>은 그때까지뿐이다. 그들은 이것을 모른다. 아는 자와 따르는 자들만 알고 이야기한다.
10. <섭리사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주’를 빼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가 되어 쓰는 자가 있기에 주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들을 바로 올라미로 묶어 댔다. 야비한 짓을 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죄사슬로 그들의 목을 묶었다. 전에는 그리 주를 증거하더니, 이제는 일생 동안 사망이 그를 다스린다.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다. 보낸 자가 매일 간구하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쪼개셨다.
11. <육>도 <영>도 행위대로 갚아 준다. 섭리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손대고, 흠잡은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이니, 쫓아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가지고 안 맞다고 따지던 자도, 시대 주인이 아니라고 하던 자도 그 교만이 나타나니 하나님도 주도 “그러면 나가라.” 하시고 쪼개셨다. 고로 영원한 구원을 잃었다. 섭리사를 나가서 기성에 갔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고 나갔으니,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눈에 거슬린다.
12. 섭리사 말씀에 손대고, 이유를 단 자들을 보아라. 육 평생, 영 영원히 자기 주관으로 혼자 살게 된다. 고로 섭리인들은 그를 거울로 삼고 육계에서도 보고, 영계에서도 본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주도 생명을 안 준다.
13. <배신자들>은 ‘천법’에 의해 특별히 하나님의 엄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섭리사에서 구원받고 타락된 자들은 ‘엄한 형벌의 세계’에 처한다.
14. <두려움>으로 믿어라. <가식>은 다 드러난다. <진실>로 한 것만 남는다.
15. <메시아>도 ‘사람’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육’으로만 본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그는 보이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행하시니 하나님이다.” 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셨다.

16.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 성령과 성자와 메시아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라도 동등권은 되지 않는다. 사랑의 대상이 될 뿐이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동등권’이 아니다.” 하셨다.

17. <천사장>은 ‘하나님이 부리는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동등권’으로 생각했다. 몰랐던 것이다. 고로 하나님의 생각 앞에 자기 생각을 내놓았다. 이는 동등권 행위다. 너무 모르는 짓을 한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으냐. <천사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의 수백억 분의 일 정도다. <주권>도 그러하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으니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지 알았다. 정말 어리석었다.

18. 마지막 섭리역사에서 시대 사명자가 조건을 세우고 승리하니, 사탄도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던져졌다. 천 년간이다.

19. <사랑의 대상>은 삼위와 주와 ‘동등권’이 아니다. 삼위와 주와 일체 돼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신이 된 자다.

20. 인간은 변화무쌍하다. 오늘은 산같이 결심하고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한 자도, 내일이 되면 변하기도 한다. <마음>에서 변한다. 역시 ‘인간’이다. <영적인 자>는 ‘영’을 잡고, <육적인 자>는 ‘육’을 잡아라.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는 생각을 잡으려고 해도 없다. 변해서다.

21. <성령>은 ‘영’이시다. <성령>을 확실히 알고 ‘실체’로 맞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면, 자기가 절대 100% 믿어야 된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고, 늘 대화하면서 자기 몸을 쓰면, 현실적이니 확실하다. <영>이신 하나님과 성자도, 자기 영과 혼도, 천사도 그러하다. 자기가 절대 믿고 행하면, 실체가 되어 현실에서 이뤄지니 확실하다. <사람>도 현실적이지 못하면, 확신을 못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자기와 함께 하심을 100% 믿고 절대 하나가 되면, 현실에서 함께해 주시니 확실하다.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것>을 놓고도 ‘제 방법’을 더 좋다고 하느니라.

2. <이론>도 ‘제 방법’이 더 좋다고 하느니라.

3. 방법 자체가 더 좋은 것도 있지만, <하는 자>는 자기가 배운 대로 ‘제 방법’이 더 좋다고 하게 되느니라.

4. <선의 방법>과 <악의 방법>이 있어도, <하는 자>가 ‘악의 방법’을 배우고 좋아하면, <악의 방법>이 더 좋다고 하느니라.

5. <육의 방법>과 <영의 방법>이 비슷한 것 같으나, <육>이 하면 ‘육의 것’이 좋다고 하고, <영>이 하면 ‘영의 것’이 좋다고 하느니라.

6. <영의 것>은 현재 했어도 영원하고, <육의 것>은 현재 했어도 영원한 것이 못 되나니, 이는 <영의 것>을 위해 하면 ‘영체’가 그 공력을 영원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니라.

7. <영>을 중심해서 해야 하느니라. <육>을 중심해서 하는 자는 지혜가 없고 분별치 못하나니, 제대로 알 수가 없느니라.

8. <사랑>은 ‘육적’으로 하면 ‘육’이 받고, 하나님과 주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하면 ‘영’이 받느니라.

9. <육적>으로 사랑하나 <영적>으로 사랑하나 비슷하다 하여도, 삼위와 주의 뜻 안에서 <영>을 중심해서 사랑하면, <영>이 한 고로 영원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안에서 행한 것이 되어서 ‘의’가 되느니라. 고로 그에게 축복이 있느니라.

10. <영>을 중심해서 했어도 ‘육적으로 한 자’는 알 수가 없느니라.

11.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세계’로 영광을 받고, 그 형체도 ‘육’에 속해 이뤄지느니라. <영에 속한 자>는 ‘영’으로 영광을 받고, 그 형체도 ‘영’에 속해 이뤄지나니, 자기가 이론 형체대로 영원히 영광을 받느니라. <육의 방법>과 <영의 방법>은 이같이 다르나니, 항상 ‘영의 방법’으로 행해야 ‘육의 방법’으로 안 되느니라.

12. 생각했으면, <영의 방법>으로 행해야 그 형체도 ‘영에 속한 자’가 되느니라.

13. <글>도 생각했으면 ‘글’로 써 놓아야 글로 존재케 되나니, 이같이 행치 않으면 생각만 하다 사라지게 되어 결국 ‘행치 않은 자’와 같은 위치가 되느니라.

14. <영의 방법>은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라. 생각했으면 그같이 살아야, 살면서 계속 ‘영의 방법’이 생각나고 행하게 되느니라. 생각을 했어도 그같이 살지 않으면, 마치 배우지 않은 것을 두고 생각만 하는 것과 같아서 모르느니라. 배워야 알듯, 살면서 행해야 되느니라.

15. <영의 방법>은 이것이니, 곧 “항상 주 안에 거하여라. 자기 생각이 항상 전능하신 삼위 안에 거하게 하여라.” 함이니라.

16. 주와 일체 돼야 ‘주의 행함’이 되는 것이니라. 마음이 일체 되고, 손발이 일체 되고, 그의 몸이 되어 행함으로 ‘실체’로 남기는 것이니라.

17.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이 처음과 다르게 될 때가 있나니, 그때마다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니라.

18. 육계나 영계나 이치는 같으나, ‘차원’이 다르니라.

19. <육계>는 육신이 걸어가고, <영계>는 영체가 날아다니느니라.

20. <육계>에서도 육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행하면 차원이 다르나니, 이는 <날아다니는 자>와 같으니라.

21. <지금까지 월명동에 해 놓은 것>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영적’으로 한 것이니라.

22. <하나님이 하신 것>이 곧 ‘영적’으로 한 것이니라. <영적>으로 하면 삼위는 늘 기뻐하시며 그 영광을 받으시나, <육적>으로 하면, 삼위의 마음에 맞지도 않고 그 자체가 ‘사탄’에 속한 것이 되나니 받지 않으시니라.

23. 항상 삼위의 뜻과 주의 뜻대로 해야 늘 봐도 눈에 거슬리지 않고 기뻐하며 쓰게 되느니라.

24.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바벨탑같이 헐어 버리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뜻대로 아니 한 것은 헐어 버리시고 다른 자리로 옮겨서 하시든지, 혹은 다른 자를 통해 하시느니라.

2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절대 자신의 뜻과 그 보낸 자의 뜻대로 정녕코 행하시며 축복도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뜻을 펴시느니라. 고로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이루고,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심이라. 삼위의 뜻대로 만들고 행한 자들로 ‘육과 영의 뜻’을 펴 가시나니, 이들로 ‘삶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26.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탄의 방법>도 옳다고 하느니라. 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그 생각이 ‘사탄에 속한 생각’이 되느니라.

27. <삼위의 생각>만이 절대 온전한 생각, 영원한 생각이며, 그 보낸 자의 생각도 이와 같으니라. 고로 보낸 자와 일체 되어 행함으로 삼위와도 일체 돼야 하느니라.

28. <자기 생각>을 ‘삼위와 주의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나, 자기 생각이 될 뿐이니라.

29. <자기 생각, 자기 것>은 아예 빼고 처음부터 ‘삼위와 주의 생각’으로 하고, 그 구상대로 하면 월명동같이 ‘최고의 작품’이 되느니라.

30. 하나님이 6000년 동안 유구한 구원 역사를 펴 오신 것은 자신이 생각하신 바를 땅에 이루시기 위함이니라.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은 시대마다 차원으로 ‘시대의 아벨’들로 역사를 펴 오셨느니라. 지금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새 시대 보낸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역사를 펴 가고 계시니라.

31. 절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시대 말씀을 듣고, 삼위와 보낸 자를 사랑함으로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될 지니, 이로서 <육>은 땅에서 ‘사랑’으로 휴거를 이루어 천 년 동안 혼인 잔치하고, <영>은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혼인 잔치하리라. 이는 한 여자가 ‘0대, 10대, 20대’를 거쳐 성장하여 한 남자와 결혼하듯, 인간도 ‘구약, 신약, 성약’을 거쳐 성장되어 이 시대에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여 그 육도 영도 ‘하나님의 실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이를 ‘휴거’라고 하느니라.

32. <삼위의 실체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는 ‘휴거의 영’이 된 자이니, 이것이 인간으로서 더 이상 없는 영광과 축복을 얻은 것이니라.

33. <시대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육’이 행함으로 ‘신부의 영’으로 변화되고, ‘삼위의 실체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하느니라. 이것이 ‘육의 생각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이니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역사로 합리화시켜 전하고 가르치나니, 이는 ‘육에 속한 가인들’이니라. 고로 오늘도 주를 맞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노라.

34. 천하만사에 있어, <때>와 <시대 역사>는 ‘지구가 도는 것’을 못 막듯이 못 막느니라.

35.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낮은 차원’에 처해서 보면, 모든 것들이 ‘낮은 차원의 존재물들’이니라. 가령 <유치원>에 가서 보면, 사람들도 모두 어리고, 쓰는 것도 차원이 낮은 것들이니라. 먹는 것도, 옷도 다 작은 것들이니라. 이같이 <영계>에서도 ‘차원이 낮은 곳’에 가면 모두가 그러하니라.

36. 차원을 높여 살아야 거기서 벗어나고 모든 것이 좋아지나니, 고로 좋은 것을 얻고 쓰게 되느니라.

37. <음식>도 ‘차원 높은 것, 좋은 것’을 먹으면 온몸이 ‘좋은 영양’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건강해지나니, 이같이 <신앙>도 그러하니라. 고로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그리하면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 높은 차원에서 얻고 쓰게 되리라.

<2018년 4월 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가만히 있으면 빨리 가고, 뛰고 움직이면 천천히 간다.(잠에서 깨고 앉아서 시간을 쳐다보고 있으니, 금방 10분이 갔다. 이때 성령이 하신 말씀이다.)

2.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3. 하나님은 허공에다 씨를 뿌리지 않으신다. <인간>은 ‘땅’이다. 땅이 없는데 허공에 씨를 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4.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접하시고, 그 마음에 맞춰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5.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 사람을 대하고, 통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6.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마음이 많으시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사람은 ‘선’을 좋아한다. 하나님도 인간과 같이 ‘선’을 좋아하신다. 또한 사람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또한 사람은 ‘사랑’을 좋아한다.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사람들은 ‘돌’은 ‘돌’로 칭하고, ‘바다’는 ‘바다’로 칭하고, ‘강’은 ‘강’으로 칭한다. 하나님도 그같이 칭하고 보신다. 사람들은 ‘긴 것’은 길게 보고, ‘짧은 것’은 짧게 본다. 하나님도 그리 보신다. 하나님도 ‘남자’는 ‘남자’로 보시고, ‘여자’는 ‘여자’로 보신다. 이같이 하나님도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보신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7. <사람>도 ‘좋은 것’을 주면 좋아하듯, <하나님>도 ‘좋은 것’을 드리면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일 좋은 것을 바쳐라.” 하셨다.

8.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해 놓으셨다.

9.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대하여라. 그러면 쉽게 통하고 대화할 수 있다.

10. 사람도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대하면, 쉽게 통하게 된다.

1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삼위의 마음을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를 앎느냐.” 하셨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두 가지 생각과 마음과 행함’을 가지고 존재하신다. 하나는 ‘인간을 대하는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시고, 다른 하나는 ‘전지전능하신 생각과 마음과 행함’이시다. 모두 자기가 삼위를 대하는 대로, 자기 차원 대로 대해 주신다. 자기가 삼위를 높이 대하면, 삼위도 그를 높이 대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더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대하면, 이에 대한 축복도 더 주신다.

13. 사람끼리도 ‘자기 마음’만 중심하면, 잘 안 통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4.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 다 통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셔야 통한다.

15. 사람은 자기와 친해야 가깝게 지내고, 잘 통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도 친해야 잘 통한다.

16. 사람이 ‘삼위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 알면 아는 대로 행하여라.

17. 사람도 ‘자기가 쓰는 자’와는 잘 통한다. 그에게 자기 일을 시키니 그러하다. 하나님도 ‘사명을 준 자’와 잘 통하신다. 선지자나 중심인물, 메시아 등이다.

18.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보이기도 하셨다. 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니, 항상 그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다.

19.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늘 선지자나 메시아에게 말하고 행한다.” 하셨다. <하나님의 육>이니, 그들을 통해 세상에 증거하고 말해 주기 위해서다.

20. 하나님을 사랑해도 ‘은밀히 행하실 것’은 숨기고 은밀하게 행하시고, 후에 알리기도 하신다. 사탄과 무지한 사람들이 막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21.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행하신다는 역사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사명자만 알고 행하게 한다.” 하셨다. 그 말씀처럼 때가 되어 ‘메시아’만 알게 하셨다.

22. 하나님은 ‘해당자’가 같이 행하면서도 그 일인지 모르게 하신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야 “그 일이 도적같이 한다고 한 일이었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때는 이미 반대자들이 지나가서 다시는 못 만나는 때다.
23. 사람도 ‘어떤 비밀의 뜻’을 두고 상대가 알면 안 되니 숨기고 하듯, 하나님도 절대 숨기고 하신다. 고로 <내용>을 안 알리고 하게 하시고, 다 한 후에 쓰면서 스스로 알게 하신다.
24. <사명자>에게도 ‘근본’을 말씀 안 하기도 하신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을 안 하셔도 그 일은 하게 하신다.
25.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고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성경에 예언하신 것’과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것’을 다 이루신다. 그리고 다 이루고 얻었어도, 말을 안 하신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서다. 또 <하는 자>만 하기에, ‘안 하는 자’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6. 하나님은 차원이 높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하셨다. 가령 같은 사람을 봐도, 사람이 볼 때와 하나님이 볼 때 ‘보는 차원’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고로 ‘대함’도 다르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다. 하나님과 인간이 같으려면,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 돼야 된다.
27.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해도, 바로 엇갈린다. <생각>이 달라서다. <뜻>이 달라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을 따라가는데, 조금은 같이 가도 더 가면 결국 갈리는 것과 같다. 어린아이는 ‘장난감 가게’로 가고, 어른은 ‘차를 파는 곳’으로 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이 순간씩은 마주쳐도, 일체 되지 않으면 바로 엇갈린다.
28.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육’으로 쓰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29. <주>는 하나님의 심판, 축복 등 각종으로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신 것들을 알아도, 증거할 것만 말하고 다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뉴스로 모두 말하게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30.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다 보면 할 일을 못 하니,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목적만 행하시고, 뜻을 이루시어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둬들이듯 ‘하늘의 영들’을 거둬들이신다.
31.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들이 각자 자기 위치대로 살게 하시고, 차원이 다른 세계는 못 가게 해 놓으셨다. 부부가 일체 되어 살듯, 절대 일체 된 자들만 같이 살게 하셨다. 그 외에는 필요가 없다.
32. <뇌신경>은 각 지체들과 다 통하지만, 지체별로 많이 느끼고 통하기도 하고, 조금 느끼고 통하기도 한다. 일생 동안 이같이 살다 끝난다. <하나님을 느낄 때>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머리’와 같아서 ‘핵’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느낀다. 그 외에는 ‘지체’라 일생 동안 지체별로 느끼고 행하며 살다 끝난다. 지체 중에서 <핵>은 많이 느끼고, 그 외에는 많이 못 느낀다. <사랑>도 <핵 지체>는 많이 느끼고, 핵 지체가 아닌 것은 사랑을 받아도 조금 느낀다. <많이 느낀 지체>는 그만큼 그 일을 많이 하게 된다.
33. 하나님은 세상이 지구가 돌듯 돌아가게 해 놓으시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흘러가게 해 놓으셨다.
34. 존재대로 느끼고, 행하고, 받고, 누린다.
35. 하나님은 서로 만족하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36. 호랑이는 생고기를 먹고 살고, 초식동물은 식물을 좋아하며 먹고 살게 해 놓으셨다. 고로 호랑이는 평생 ‘식물 맛’을 모르고 살다 죽고, 초식동물도 평생 ‘고기 맛’을 모르고 살다 죽는다. 사람도 그러하다. 각자 차원대로다.
37. 새벽에 <성령님>을 비유로 보여 달라고 하니, 성령님은 ‘얼음을 안 녹게 하는 드라이아이스’를 보여 주셨다. 하얀

것이 얼음을 둘러싸면서 얼음이 안 녹게 보호했다. 하얀 물체가 얼음이 안 녹게 보호하듯 성령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각종 것을 보호하며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하얀 물체같이 성령님은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2018년 4월 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같은 물>이라도 '찬물'과 '뜨거운 물'은 쓰임이 아주 다르듯이, <똑같은 자기 마음>이라도 '극적으로 뜨거운 마음과 생각'과 '보통의 마음과 생각'은 각도도, 방향도 너무나 다르다.
2. 가령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하자. <좋아서 극적으로 볼 때의 생각>은 <보통으로 볼 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3. <안 할 것>도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켜서 극적으로 생각하면, 하게 된다.
4. <좋은 것>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보면, 오히려 추하게 보고 안 좋고 가치 없는 것으로 본다.
5. <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은 극으로 좋아서 본다.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하기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
6. <똑같은 물>이라도 펄펄 끓이면, <물>이 하는 일이 달라진다. 느낌도 달라진다. 고로 고기도 삶고, 각종 음식을 익힌다. 이와 같이 <자기가 행할 일>을 두고 마음과 생각을 뜨겁게 강하게 하면, 느낌도 다르고, 극적으로 할 일을 하게 된다.
7.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을 거기에 해당되게 만들어서 행하게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께 속해서 일체 되면, 이성에도 호기심이 없고 세상 사랑도 그리 좋게 안 느껴진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기에게 임해서 보니, '근본'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9.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강도>에 따라 거기에 빠져 행하게 된다.
10. <자기 생각>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신의 생각으로 세상도, 사람도 보게 된다.
11. <자기 생각, 자기 정신>으로는 할 수 없으니, '술'로 자기 생각과 뇌신경을 강하게 느끼게 하고 행한다. 이때는 자기 본정신에서 벗어나서 행하게 된다. <마약>도 그러하다. 마약으로 자기 생각과 신경을 강하게 느끼게 해서 자기가 목적인 일을 하기도 한다.
12. <삼위께 속한 자>는 '기도'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한다.
13.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된 자>는 세상을 봐도, 이성을 봐도 보통으로 본다. 이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 되어 행함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14. 참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참아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때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
15. <자기 자체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살면, 큰일도 못하고 '자기 주관권의 생각'으로만 하고 끝난다.
16.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강한 마음과 생각'을 받고 해야 된다.
17.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강한 것'을 보고 들어야 강해진다. 또한 <강한 자>와 <마음과 생각이 뜨거운 자>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강해진다.

18.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하려면, ‘연단’이다. 선생은 전쟁을 겪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다스리고 연단시켰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수십 년간 하면서 강해졌다.

19.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감동이 되고, 뜨거워진다. 이같이 하고 행해야 된다.

20.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서 못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의향’을 몰라서 못 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된다.” 하셨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하셨다.

21.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라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22.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이루게 된다. 그리함으로 <육>은 땅에서 당세와 그 자손들까지 계속 역사를 펴 나가게 하시고, <영>으로는 육신의 삶을 마치고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23. 삼위와 주와 늘 함께 하여라. 그리하는 자는 담대해지고, 두려움도 죽음도 공포도 벗어나게 된다.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활의 기쁨과 흥분>이다.

2. 잠에서 깨고 수면 상태에서 누워 있으면, 그 편안함이 마치 ‘황금성 천국’에 누워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안 일어나 진다. <잠>도 하나의 기쁨과 흥분이다. <기쁨과 흥분>은 어떤 것으로 일어나든 동일하다.

3. <인간의 기쁨과 흥분>은 ‘남녀 이성으로 인한 기쁨과 흥분’도 있고, <자체 기쁨과 흥분>도 있다. <자체 기쁨과 흥분>은 그 가짓수가 수만 가지다.

4. <성(性)에 빠진 자>는 ‘뇌’가 그쪽으로 중독되고 굳어서 그쪽으로만 생활의 기쁨과 흥분을 느끼며 즐겨 산다.

5. <뇌신경>은 길들이기에 따라 결정된다.

6. <뇌>와 <몸>은 실상 ‘한 덩이’다.

7. <뇌신경>은 ‘살덩이’가 아니고 ‘신경 덩이’만 있다. 반면 <몸 신경>은 ‘살덩이’가 있고, 거기에 부챗살처럼 ‘몸 신경’이 뻗어 있다. 고로 <몸>은 ‘몸 신경’으로도 느끼고, 신경과 일체 된 ‘살’로도 느낀다. 고로 <몸>으로 느끼면, ‘뇌가 느끼는 것’과 다른 느낌이고, 그로 인해 기쁨과 흥분도 다르다.

8. <뇌>는 ‘신경 덩이’다. 고로 <뇌>로 느끼면, 자극적으로 느껴지고 기쁨과 흥분의 맛도 ‘몸’으로 느끼는 것과 다르다. 고기의 맛과 밥의 맛이 다르듯, 딱딱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다르듯, <뇌>가 느끼고 기뻐하는 것과 <뇌를 확대한 몸>이 ‘살’과 함께 느끼는 것은 기쁨도 흥분도 다르다.

9. <핵>으로 느끼는 것은 오래 못 느낀다. <이성의 핵>은 ‘금단의 열매와 생명나무’다. 이는 몸 지체의 일부분이다. 고로 이것으로는 기쁨과 흥분을 느껴도 순간이다. 하나님은 아예 그리 창조해 놓으셨다. <각 지체>도 ‘몸 지체의 일부분’이다. 고로 지체 하나로만 느끼면, 잠깐이다. 가령 모든 지체는 가만히 있고, ‘발 지체’만 주무르고 자극을 주면 ‘발의 피곤이 풀릴 때까지’는 시원하고, 편안하고, 그로 인해 기쁘고 흥분된다. 그러나 발의 피곤이 다 풀렸는데 계속 주무르면 그때부터는 싫고, 아프고, 고통이다. 흥분이 끝나서다. 이는 마치 배고파서 밥을 배불리 먹었는데 계속 밥을 먹는 격이다. 고로 고통이다. 이같이 <몸의 각 지체들>은 흥분시켜도 ‘한계선’에 매여 있다. 고로 기쁨도 흥분도 짧다. <이성>도 그러하다. 서로 사랑해도, 순간의 자극과 흥분이다. 한계선까지다.

10. <신경이 느끼는 느낌>이 강할수록 ‘순간’이다. 이는 <강한 성격을 가진 자>가 순간 화를 내고 끝내는 격이고, <성

격이 급한 자>가 3배 빠르게 밥을 먹고 순간 기쁨과 흥분을 느끼고 끝내는 격이다.

11. <느낌>은 ‘뇌’와 ‘이성(異性) 신경’이 가장 강하다.

12. <뇌>에도 특히 핵으로 ‘이성 신경’이 있다. 고로 성적 지체가 흥분하면, ‘뇌의 이성 신경’과 일체 되어 뇌도 같이 흥분된다. 이때는 뇌의 생각으로만 흥분되지 않고, ‘뇌의 이성 신경’과 일체 된 몸 지체도 같이 흥분된다. 생각으로 이성을 상상하면, 마음과 생각으로만 흥분되고 끝나지 않고 ‘뇌의 이성 신경’과 연결된 ‘성적 지체의 신경’에도 시동이 걸려서 그 지체도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뇌에서 자극이 되면, 그로 인해 흥분액도 분비된다. 이같이 <몸 지체>가 흥분되어 느끼면, 그와 연결된 ‘뇌신경’도 같이 흥분되어 느낀다.

13. <지체 하나>로만 느끼는 것은 ‘순간 흥분, 순간 기쁨’이다. 특히 <핵>으로 느끼는 것은 가장 크고 강하게 순간 느끼고 끝난다. 이는 마치 소리를 큰 소리로 높게 지르면 오래 못 가고 순간 끝나고, 작게 저음으로 소리를 내면 4~5배 정도 오래 가는 것과 같다. 또한 <물>도 극으로 뜨거울수록 오래 손을 못 넣고 순간 느끼고 끝나고, 따뜻할수록 오래 느낄 수 있는 것과 같다.

14. <소리>도 한계 이상으로 크고 높게 못 지르듯, <물>도 뜨거우면 한계 이상으로 손을 못 넣듯, <이성>도 한계 이상으로 오래 느끼게 하면 정상에서 벗어나서 ‘뇌신경’도 ‘몸 신경’도 무감각해지게 된다. 고로 하나님은 ‘순간’만 느끼게 창조하셨다. 그런데도 오래 느끼려고 마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약물도 복용하며 별짓을 다 한다. 결국 뇌 기능이 마비되고 신경이 마비돼서 못 느끼게 된다. <식물인간 뇌>가 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서다.

15. <영>은 무한히 느낀다. <영>으로 느끼고, <뇌>로 느끼면 다르다.

16. <뇌>는 ‘마음과 생각’이다. <마음과 생각>으로 느끼면, 종일 느낀다. 그다음 <몸 전체>로 느끼면 오래 느낀다. 그다음 <몸 지체>로 느끼면 아주 짧다. <성적 지체>인 금단의 열매, 생명나무로 느끼면 그와 연결된 뇌신경이 순간 느끼고 끝난다. <핵 지체>라 그러하다. <성적 지체>로 느끼는 것은 뇌신경과 연결되어 기쁨과 흥분을 강렬하게 느끼지만, 신경이 자극되어 느끼는 시간은 짧다.

17. <몸>은 ‘살’과 ‘신경’이 뭉쳐져 있다. <뇌의 생각>을 중심으로 <뇌신경>을 확대한 ‘몸’으로 느끼면, 기쁨도 흥분도 종일 느낀다. 이때는 ‘지체 하나’로 느끼는 것이나 ‘육적 지체 하나’로 느끼는 것과 맛도 흥분도 기쁨도 다르다.

18. 소를 잡으면, 가장 맛있는 핵 부위인 ‘안심’은 몇 근 안 된다. <핵>을 먹으니 기쁨과 자극은 크지만, 금방 먹고 끝나니 기쁨을 느끼는 시간은 짧다. 이같이 ‘육적 지체 하나’로 느끼는 것도 그러하다. <핵>을 확대한 ‘소 전체 부위’를 먹으면, 수백 근이나 되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동안 먹는다. 부위마다 맛도 너무 다르다. 이같이 <핵>을 확대한 몸>으로 ‘생활의 기쁨, 생활의 흥분’을 느끼라 함이다.

19. <생활의 흥분>이다. 하나님 안에서 주와 일체 되어 의를 행하면, 매일 기쁨과 흥분이 연속되고, 영도 혼도 기쁨과 흥분이 ‘극’으로 연속된다.

20. <일의 흥분>이다. <일의 흥분>에는 수만 가지가 있다. 기도, 찬양, 작품 만들기, 전도, 강의, 하나님과의 대화에 도전하기, 휴거의 영으로 완성하는 일 등 많고 많다.

21. <몸>은 ‘살’과 ‘신경’이 일체 되어 느낀다. 그 느낌이 은은하고 무게 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은 ‘비행기나 열차’를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격이고, <몸의 한 지체>나 <성적 지체>로 느끼는 것은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격이다.

22. <몸>은 ‘살’과 ‘신경’이 붙어서 느낀다. <살>과 <신경>이 느끼는 그 기쁨과 흥분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다. 그 느낌이 무게 있고 은은하게 오래 느껴진다.

23. <핵 과일>은 작으니, 순간 느끼고 끝난다. <몸>은 ‘생활’에서 느끼니 행하는 대로 백 배, 천 배 더 느낀다.

24. <이성 신경>을 자극하면, 그 흥분과 기쁨은 ‘기타의 최고 고음을 치는 느낌’이다. 반면에 <몸>과 <살 속 신경>이 일체 되어 느끼는 흥분과 기쁨은 ‘기타의 저음을 치는 은은한 느낌’이다. 이 비유를 잘 들어라. 하나님과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신다.

25. 인간은 종일 <살>과 <살 속 신경>이 뭉친 ‘몸 전체’를 가지고 산다. 이 시간은 남녀가 이성 관계를 하는 시간과 같은 시간이다. <몸 전체>는 ‘확대한 생명나무, 확대한 선실과’다. 고로 <성적 지체의 흥분>은 순간이지만, 그보다 천 배나 큰 ‘몸 과일’은 천 배나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수십 가지로 느끼고, 기쁘고, 흥분된다.<뜨거운 물>도 양이 적으면 ‘작은 시간’만 뜨겁다. 양이 많으면, 뜨거움이 그만큼 오래 간다. <뜨거운 섯덩이>도 크기가 작으면 작은 시간만 뜨겁고, 크기가 크면 오랜 시간 뜨겁다. 이와 같이 ‘축소체 과일 덩이’보다 ‘확대체 몸덩이’가 천 배나 더 크니, 웅장한 ‘몸 과일’로 느끼고 흥분하면 천 배의 시간을 더 느끼고, ‘몸의 각 지체’가 느끼니 다양하게 수십 가지로 느낀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또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생활>을 잘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

2. <확대체 몸덩이>가 느끼는 것은 ‘이성의 흥분이나 자극’과 맛도 다르고, 얻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이성>으로 자극하는 것은 ‘한 가지 느낌’이다. 하나님이 그리해 놓으셨다. 절대적이다.

3. <입>도, <코>도, <눈>도, <귀>도 각각 거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 느낌이다. 절대적이다. 이같이 <이성>도 ‘이성에 해당되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한 가지 느낌이다.

4. <몸>도 꼬집으면 ‘한 가지 느낌’이다. 지구 세상 모든 인생들이 동일하다. 이 살 저 살 꼬집어 보아라. 종일 꼬집어도 그 느낌 한 가지다. 또 바늘로 찔러 보아라. 그 느낌도 역시 종일 해도 ‘한 가지 느낌’이다. 벌에 쏘여도, ‘한 가지 느낌’이다. 백 번 쏘여도 그 느낌 한 가지다. <사과>를 먹어 보아라. 사과의 맛 ‘한 가지’다. 평생 먹어도 ‘사과 맛’이다. 이같이 <이성>도 순간 흥분되어 느끼는 ‘한 가지 느낌’뿐이다. 그런데 <확대한 몸 과일>은 천 배나 크니, 각 지체마다 각종으로 수백 가지를 느끼고, 종일 느낀다. <일을 할 때>도 귀, 눈, 코, 손, 발 등 수십 개의 지체가 개성대로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된다. 고로 그것이 ‘종합 선물’같이 기쁨이 온다. <한 가지 선물>을 받을 때보다, ‘수십 개의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도 수십 가지로 온다. 이같이 <몸>도 ‘각 지체’대로 기쁨과 흥분을 느끼게 된다. 가령 <지계를 질 때>도 한 가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며 느끼고, 다리나 발로도 느끼고, 지계를 지는 어깨나 팔로도 느끼는 등 각종으로 느낀다. 이같이 <생활할 때>도 보고, 듣고, 말하고, 숨쉬고, 움직이는 등 각종으로 느끼는 맛이 온다.

5.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왜 그 작은 이성 지체로만 느끼려고 하느냐. 왜 작은 지체만 보느냐. 아름답고 웅장한 몸 과일을 보아라. 몸으로 천 배나 더 많이 느껴라.” 하셨다.

6. 크게 <확대체>로 보고 행해야 ‘큰 자’가 되고,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큰 것>을 봐야 크게 느끼고 <할 일>도 크게 보니, 까놓고 이야기한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남녀 이성 사랑, 동성 사랑, 자위행위, 음란물을 보는 행위>는 ‘죄’가 된다. 고로 회개하여 끊지 않으면 ‘황금성 천국 길’을 가다가도 쫓겨나고, 혹은 쫓겨나지 않아도 성장이 안 되고 가다가 만다. 이것을 모르니, 남녀 이성 사랑이나 동성 사랑, 자위행위, 음란물에 길이 들어 행한다.” 하셨다.

7. <확대한 몸>으로 삼위와 주와 ‘사랑’도 하고, 크고 다양하게 느껴라.

8. <확대한 몸 과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어 전도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며 기쁨과 흥분으로 행하여라. <몸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자기에게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생활의 기쁨, 생활의 흥분’이다.

9. <세상>을 보아라. 이성이나 술 등 모두 자극적인 흥분과 기쁨들이다. 이성이나 술에 중독되어 사는 자들이 지구 세상에 수십억이다. <축소체 과일 덩이>를 자극하는 각종 약물들을 자꾸 먹으면 환각을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된다. <자극>은 중독을 일으킨다. 이외에도 물질이나 명예, 각종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되면 ‘식물인간 뇌’가

된다.

10. <술>도 ‘음식’으로 만든다. 쌀, 보리, 고구마, 사과 등 재료에 알코올 성분을 넣고 자극적으로 강도를 높여 만든다. 그것을 먹으며 흥분하며 기뻐한다.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 ‘몸 전체’가 흥분되어 기쁘고, 오래 느낀다.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7시간이 지나면, ‘물’성분으로 변화된다. 고로 음식을 먹고 몇 시간만 지나면 몸에 영양이 흡수되니 몸에서 느낀다. <술>을 안 먹어도,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면 무게 있게, 은은하게 몸에서 느낀다. 하나님이 이같이 창조하시어 다 흥분과 기쁨을 느끼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기에게 병이 되는 술을 계속 먹고 죄를 짓고, 사고를 낸다. 고로 하나님은 술을 만든 회사를 심판하셨다. 불 심판을 하셨어도 모른다.

11. <차>도 막 달리면 스릴 있고, 신경을 자극해서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그러나 ‘빠른 속도’에 중독돼서 달리다가 ‘깡’ 하고 부딪혀서 사고 나면, 50년, 70년 동안 누릴 것이 한순간에 끝나고 만다. 자극적으로 달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전해도 은은하게, 무게 있게 계속 흥분을 느낀다. 그리고 안전하다.

12. <정상>을 벗어나서 하면, ‘죄’다. 생명에 위험이 온다. <정상>을 벗어나서 ‘자극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래 못 간다. 은은하게 느끼고, 무게 있게 느끼고, 중후하게 느껴야 오래 느낀다.

13. 자극적으로 느끼면, 권태가 온다. <남녀>가 이성으로 자극적으로 즐기다가 권태가 오니 헤어진다. <일>도 자극적으로 하면, 권태를 느껴 못 하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확대한 몸 과일>로 생활에서 ‘기쁨과 흥분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다. 인생을 확대하여 보고 써라.” 하셨다.

14. <월명동>도 축소해서 보면, 독수리 머리나 용 머리, 금단의 열매, 야심작의 작은 보좌만 보인다. 확대해서 보면, 월명동 전체가 의자로 보이니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고 진짜 의자 같다. 의자의 각종 장식이 다 보여서 정말 신비하고 아름답다. 이는 사람의 전체 몸을 보는 것 같다.

15. <월명동을 둘러싼 산들>은 좌우 12개다. 둘러싼 모양이 둥그스름하고 의자 모양으로 쭉 나와 있다. 진짜 멋있다. <보좌의 다리>는 ‘홍두깨 능선 줄기’와, ‘치타솔이 있는 능선’과 ‘자화상바위가 있는 준령’이다. 크게 확대해서 보아라. 또 <보좌의 좌우>를 보면, 각각 여섯 개의 날개 형상이 있다. 세어 보아라. 청기와집 뒤쪽 산부터 가는골 능선까지 여섯 개다. 또 보좌의 우측으로도 앞산부터 여섯 개가 있고, 끝 쪽은 촛대봉 능선이 인대산으로 연결됐다. 월명동을 둘러싼 산들이 보좌에 각종 조각을 한 것같이 보인다. 그리고 대둔산은 보좌 뒤에 ‘병풍’같이 보인다. 크게 봐야 기쁨과 흥분이 엄청나다. 확대해서 보아라.

16. <금단의 열매와 생명나무>도 ‘확대한 몸’으로 보아라.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다. 그 모양을 축소해서 보면, 단순하다. 하나님이 ‘종합 선물’같이 확대해서 ‘각종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것’을 보아라. 금단의 열매와 생명나무는 모양이 여섯 개다. 그런데 확대한 몸은 그 모양과 형상이 큰 것만 봐도 60개 정도 된다. 엄청나다.

17. <축소체>만 보는 자는 마치 월명동에 와서 ‘정자(亭子)’ 하나만 보고 흥분하고 기뻐 즐기는 자와 같다. 정자 하나만 보면, 거기에 있는 기둥, 지붕, 마루, 의자 등 4가지 정도만 보고 느끼고 즐기고 기뻐한다. 그러나 <확대한 전체 월명동>을 보면, 큰 것만 100여 가지를 본다. 폭포수 3개, 운동장 2개, 연회장, 선녀탕 4개, 연못, 잔디밭, 정자 3개, 산 12개, 산책로 11개, 형상석 20개, 샘 3개, 기도 장소, 소나무 작품, 건물 등이다. 각각 자세히 보면, 500여 가지가 넘는다. 확대해서 보면, 축소한 것만 보는 것보다 웅장하고 기쁨과 흥분도 크다. 고로 하나님은 “<전체 확대판>을 보아라.” 말씀하셨다.

18. <확대판>은 ‘이상세계’다.

19. <금단의 열매나 생명나무>도 ‘확대판’으로 보면 죄가 아니다. <축소판>을 보면 ‘죄’이니 하나님의 법에 걸린다. 하나님이 각종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확대판 몸’을 보아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설명해 주시어 기록했다.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축소판 자기 자신>만 보고 생각하지 말고, <확대판 형제들과 섭리사와 삼위일체>를 보고 생각하며 행하여라.
2. <자기 생각만 하고 행하며 즐기는 자>는 ‘축소판 핵’만 보는 자와 같고, ‘자위행위나 이성 행위’를 하며 사는 자와 같다.
3. <교회를 사는 것>도 자기 생각만 하고 사지 말고, 삼위와 주께 보고하여라. <주께 보고하지 않고 의논하지 않는 자들>는 ‘축소판만 보고 행하는 자들’이며, ‘자기중심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는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다.
4. <월명동 야심작을 쌓을 때>도 제대로 안 될 때는 계속 무너졌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마치 시멘트가 굳듯, 그 형상대로 그대로 굳었다. <주>도 그리했으니 모두 주와 같이 하여라. <개인 신앙>도 그러하니라. 제대로 잘할 때까지다. 안 되면, 무너트린다.
5. <월명동>을 확대시켜서 보아라. 축소해서 보면, ‘금단의 열매’만 보인다. 확대해서 대둔산까지 보면, 월명동으로 뻗은 감람산이 <날씬한 여자의 가슴과 허리>다. 그리고 <다리>는 가는골 능선으로 뻗어서 석막리 위의 산에서 삼가리 들어오는 입구까지 뻗어 있고, <우측 다리>는 편하게 접은 다리같이 보인다. 걸작이다. 신비하다.
6. <월명동의 핵>만 보면, ‘용 머리’만 보인다. 확대해서 보면, 대둔산은 용이 꼬리를 흔드는 것으로 보인다. 극기봉까지 뻗어 있다. 감람산을 꼭 보아라. 그러면 용이 힘차게 꿈틀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월명동 용의 머리까지 전체 모습이 보인다. 웅장하고 신비하다.
7. 크게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보인다. 고로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게 보고, 그만큼 100배 더 알고 크게 느낀다. 아는 만큼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다 보아라. <용>도 ‘머리’와 ‘몸’을 다 봐야 멋지다. 아름답고 신비하다.
8. <월명동>만 보면, ‘독수리 머리’로만 보인다. 확대해서 전체 지형의 형상을 보면 ‘큰 독수리’로 보인다. <월명동 전망대>가 ‘독수리 머리의 중앙’이다. <청기와집>이 ‘눈’이다. <부리>는 ‘가는골 호랑이길 능선’이다. 가는골 골짜기로 내려오는 길은 턱과 목선, 가슴 선이다. <중말거리>가 ‘큰 가슴 지역’이다. <좌측 날개>는 감람산 전망대와 대둔산 쪽으로 뻗었다. <우측 날개>는 명막골과 촛대봉 능선으로 길게 인대산까지 뻗어 닿았다. 그리고 <우측 다리>는 ‘진등날산’이다. <발>에는 ‘화산바위’가 있다. 이는 독수리가 사냥한 것이다. <악>을 상징하기도 하고, <축복>을 상징하기도 한다. <꼬리>는 ‘극기봉’에서 좌우로 뻗다. 좌측으로 대둔산이 닿고, 우측으로는 이랑골 쪽으로 꼬리가 뻗다. 이같이 크게 보아라.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하시어 사진을 찍는 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시고, 사명자가 기도하여 인봉을 떼게 하셨다. 월명동에 독수리 형상이 없어서 삼위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있다. 찾아보아라.” 하시어 찾게 되었다.
9. 확대해서 크게 봐야 된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10. 확대해서 보니, 다 보게 되어 기쁨과 흥분도 10년, 20년, 1000년 동안 간다. <주>는 이같이 성경도 풀고 기도하여 시대 구원자가 됐다.
11. <월명동 핵>을 중심해서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대걸작이다.
12. <축소한 과일>만 보고 즐기며 기뻐 흥분하지 말아라. <만사>에 모두 확대해서 크게 보고 차원을 높여라.
13. 하나님같이 확대하여 크게 보아라. <확대한 몸 전체>를 보고 즐기며 기뻐하고, 확대한 자기 몸을 가지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게 하여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이 시대 신부들이 해야 할 사랑이다. 하나님은 크시니, 크게 사랑하여라.
14. 하나님은 “<월명동 확대판>을 보듯이 <몸의 확대판>을 보고 은은하고 무게 있게 생활의 사랑도, 기쁨도, 흥분도 오래 느끼고 살아라.” 말씀하셨다.

15. <생활에서 할 일들>도 각종으로 수집 가지가 있다. <확대한 몸>을 가지고 각종 일들을 하면서 은은하고 무게 있게 기쁨도, 사랑도, 흥분도 느끼고 사는 것이다.

16. <축소판 손가락>만 가지고 큰 돌을 들 수 있겠느냐. <천 배 확대한 몸>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같이 <이성 사랑의 핵>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 휴거’를 못 이룬다. 차원이 안 높아진다. <뇌>, <혼>, <영>, <확대판 몸 전체>를 가지고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함으로 이룬다. 여기에 ‘축소판’도 들어가니, 큰 것을 이루고 누리면 개성대로 그때마다 흥분되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다. 이를 깨닫게 하려고 너희 말대로 ‘까놓고’ 계시했다.

17. <주>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일날 ‘이성 사랑의 핵’으로 자극을 느끼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택한 신부인데 하나님과 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축소한 이성 핵’으로 스릴을 극으로 느끼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버리고 나가니, 해를 받은 것이다. 이것을 거울로 삼고 모두 깨달아라.

18. 생각으로 사랑하면, 실제로 안 해도 ‘생각 실상’이 되어 사랑한 것이다. <이성>도 그러하다.

19.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면, 그것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룬 것이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사는 자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육으로 하는 사랑, 이성 사랑’을 드리면, 그 사랑이 ‘영 사랑’으로 변화되어 삼위와 주께로 간다. 삼위와 주를 <육>으로도 사랑하며 “이 사랑이 실상이 되어 삼위와 주께로 간다.” 하고 살면, 영으로 사랑하듯 ‘육이 목숨 다해 삼위와 주를 사랑한 것’이 되어 그 사랑이 하나님께 간다. 이런 자는 ‘영’이 사랑하며 살듯 차원 높여 사는 자다.

21.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좋아서 살면, ‘세상 법’으로는 안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 ‘하나님 법’에 걸려서 말없이 그 형벌을 받게 된다.

22. 특히 젊은 자들과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육성이 왕성하고, 육적으로 발육하는 시기라서 성적이 생각이 수시로 난다. 그러면, 즉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성 생각이 폭발돼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성령님도 성자도 사랑을 받으세요!” 하며 사랑을 발사해라. 그러면, 그 사랑이 삼위께 가는 길에 ‘영 사랑’으로 변화되어 간다.

23. <육 사랑, 이성 사랑>이 생각나면 이것을 풀려고 음란물을 보거나, 자위행위를 하거나, 이성과 동성에게 가지 말아라. 그 즉시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드리고 해결해라. <육 사랑, 이성 사랑>이 솟아나면 ‘어찌지 죄인데...’ 하지 말고, 이성이고 영성이고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용광로에 녹이듯 다 녹여서 ‘핵’만 삼위께서 받으신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으시고 “역시 젊은 그대들이다. 청춘이구나.” 하신다. 그러니 가릴 것도 없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뇌 사랑’도, ‘육 사랑’도 모두 다 하나님께 부어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사랑, 영 사랑’으로 받으신다.

24. 가령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랑해서 껴안았는데, 엄마가 “너 이게 뭐냐. TV에서 배웠냐? 안 돼.” 하고 떠밀면, 아이는 울면서 ‘이게 아닌데...’ 하고 떠나가서 다른 자들과 껴안고 논다. 거기서 ‘이성’만 더 발달된다. 모두 깨달아라. 하나님은 <뇌 사랑>도, <육 사랑>도, <이성 사랑>도 다 받으시니, 그 사랑을 모두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용광로에 녹이듯 다 녹여서 ‘뇌 사랑, 영 사랑’으로 받으신다. 이는 시장에서 산 재료를 주면, 요리해서 ‘음식’으로 만드는 격이다.

25. <확대한 몸>으로 일도, 기도도, 전도도, 관리도 하고, 각종으로 수백 가지를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사랑해라.

26. <축소판 사랑>은 ‘한 가지’다. <확대판>으로 하면, 엄청나다. <손>으로 하면 1000년 동안 못 할 것도, <확대한 몸>으로 행하여 후손까지 보고 쓸 작품을 남긴다.

27. <이성의 핵 지체>로 느끼는 것은 ‘순간’이다. <뇌>로, <확대한 몸>으로 사랑하면 수만 배로 느낀다.

28. 동성이나 이성, 세상에 자기 사랑을 뺏기지 말고, <육 사랑>도, <이성 사랑>도, <영 사랑>도 모두 삼위께 드려라.

<2018년 4월 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이 세상 모든 인생들 누가 고통을 안 줘도 그리 고생하고 고통을 겪으며 산다. 오직 하루하루를 살기 위한 고생과 고통들이다.

2. <삶>으로 인한 고생과 고통들이다.

3. <선하게 사는 자>도 선하게 살기 위한 고생이다.

4. <악하게 사는 자>도 고생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5. 살기 위해 사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자>는 이 세상 일생을 살고 나면 육이 끝나서 흠에 묻히듯 영이 '사망 흑암, 고통의 세계'에 묻혀 살게 된다. 누가 고통을 안 줘도, <자기 영>이 그 환경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생을 한다. 거기서 기약 없이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

6.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을 절대 믿고 그 뜻대로 살면, 육신의 행위를 통해 영이 변화되어 '하늘의 형상'을 입고 휴거되어 그 영이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산다. 이 목적을 인간 스스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7. <목자>가 양을 몰고 가는데 '뒤쳐진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다시 데려와서 무리에 넣는다. 그리고 <잃은 양>이 있으면 끝까지 찾는다. 그러나 무리에서 벗어나 쪼개진 상태에서 다른 자가 데려가면 그 양은 주관권이 뒤바뀌게 된다.

8. 하나님은 '이 시대'와 같이 역사하시니, 반드시 '시대의 때'를 따라가야 된다.

9. 가령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으면, 반드시 이른 <봄>에 심어야 제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게 된다. 만일 봄이 지나고 여름에 심으면, 환경도 기후도 안 맞아서 크지도 않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열게 된다. 이 같이 <인생>도 그러하다. 제때 태어났으니, 이 시대를 따라 행해야 된다.

10. 사람은 '나이'에 따라 크고 성장한다. 만일 <나이 먹은 자>가 제때 못 크고 그 후에 '젊은 시대'에 속해 크면, 그때는 모두 '젊은 시대'에 맞게 하니 자기와 안 맞는다. 고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사랑의 대상도, 일의 대상도 없이 뒷일이 나 거들다가 끝나게 된다.이같이 <시대>도 그러하다. 고로 때가 되면, '그 시대'를 따라가야 된다.

11. <구시대인들>이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실 때 따라가지 않으면 못 커서 마치 유대 종교같이 그렇게 끝나고 만다.

12. <그 차원>에 속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주관권의 삶'으로 본다.

13. <광야>를 벗어나야 된다. <가나안>은 기다리는 자 앞에 있다.

14. <자체적 이상세계>는 '그 주관권'에 속한 것이다.

15. <구시대>는 '자체적 이상세계'다. 생각으로만 "이상세계다." 할 뿐이다. 마치 나물 반찬을 먹으면서 "고기다. 이상세계 진수성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격이다.

16. <새 시대>는 실제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사는 격이다. 고로 <실제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사는 자>는 '마음과 생

각으로만 그리 생각하고 사는 자'와 그 삶이 아예 다르다.

17. <구시대>는 '남자'와 살면서 "여자다." 하는 격이고, <새 시대>는 실제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격이다.

18.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들>은 은혜를 받으면서 "휴거다." 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들>은 실제로 휴거를 이루면서 "휴거다." 한다.

19. 농부는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쌀이다." 하고 먹는 자가 있고, 실제 쌀농사를 짓고 쌀밥을 먹으면서 "쌀이다." 하는 자가 있다. 이같이 <시대를 못 맞은 자>와 <맞은 자>가 그러하다.

20. 시대를 못 맞았어도, 하나님은 그 차원대로 섭리해 가신다. 다만 <시대를 못 맞은 자>와 <맞은 자>는 '일반 집에서 그냥 사는 자'와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자'와 같은 차이가 있다.

21. <한 시대>를 살아도 어떤 자는 '구시대'에서 살고, 어떤 자는 '발달된 시대'에서 사는 격이다.

22. 한 농부는 <쥐엄나무 묘목>을 기르고, 다른 농부는 <사과나무 묘목>을 기르는 격이다. 결국 가을을 맞으면 다 나타나듯, <영의 세계>에서 다 나타난다. 가을이 됐는데 열매가 없으니, 그제야 기르던 쥐엄나무를 버리고 사과나무를 기른다. 그러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니, 이미 때가 지나서 안 된다.

23. 인생 육이나 영이나 '때'에 못 하면 못 한 대로 끝난다. 오전에 모르고 못 하고서, 해 지는데 그때 깨달았다고 다시 오전으로 가지겠느냐. 모르면, 인생 실패한 대로 산다. 알면, <아는 것>이 '신'이 되어 신과 같이 산다.

24. 모르면, 잔인하다.

25. 인생 모르면, 문제들에 잔인하게 부딪힌다.

26. 모르면, 마치 <열대 나라에 사는 자>가 '추운 겨울이 있는 나라'에 온 격과 같다. 고로 겨울을 모르고 살다, 때가 되어 북풍한설과 눈보라, 강추위가 오면 얼마나 춥겠느냐. 이같이 모르면, 잔인하다. 모르고 산 대로 육계와 영계에서 받는다.

27.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 여름 장마철에 비를 피하지 못하고 홍수를 당하듯 하고, 또한 예비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이 닥쳐서 고통을 받듯 한다. 고로 모르면, 잔인하다.

28. 알면, 풍성하다.

29. 알면, <사랑 세계>가 영원하다.

30. 길에서 벗어나면, 독벌레가 가득한 가시 정글이다. 거기서 아무리 마음을 편히 먹고 "좋은 길이다." 하면서 가도, 그 길을 벗어날 때까지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결국 한계를 맞고 굴복하게 된다. 이같이 <신앙 길>을 벗어나면 그러하다.

31. <천국, 영원한 세계>가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세상>에는 '문제'가 있다. 100년 인생을 살면 늙어서 더 못 사는 문제가 있고, 병과 사고가 연속되는 문제가 있으니, 그로 인해 '영원성'이 없게 된다.

32. <천국>에는 '문제'가 없으니 영원히 살게 된다. 늙지도 않고, 병도, 사고도 없으니, 기쁨과 희락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33. <새 시대>는 하나님이 그만큼 문제가 없게 섭리해 가신다. <구원자>를 땅에 보내시어 그를 통해 구원 역사를 펴 가기 때문이다.

34. <과거 역사>일수록 문제가 많았다. 인생 개인들도 그러하다.

35. 모르면 100% 고생과 고통을 당하고, 알면 100% 고생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36. <구원자>는 알고 가르쳐 주고, 그것을 스스로 행하게 해 준다.

37. <구원>은 '알게 해 주는 것'이다.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자들'이 해야 된다.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를 <행하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문제를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근거 없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2. 작으나 크나 <근거>가 있어야 거짓이 아니다.

3. <자기>도 안 하고, <타인>을 시켜서도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이는 '거짓'이다.

4. <자기>가 했든, <타인>을 통해서 했든 조금이라도 했어야 하나님은 '같이 한 자'로 보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해 주신다.

5. 자기도 같이 했다고 하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했든지, 작게라도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향>에 따라 '제2의 행한 자'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해 주기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처분이다.

6. 그 일의 사명을 가지고 한 자가 크다.

7. 성경을 보면, 작게라도 조건을 세워야 줄 것을 줬다. 아예 조건을 안 세운 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8.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그 센터의 최고 것들'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워야 주신다.

9. 하나님께 조건과 공적을 세우는 것을 이같이 생각해라. 가령 최고 높은 봉에 '최고 것'을 놓아두었다 하자. 그리고 각 차원대로 높이에 따라 '상, 중, 하'로 줄 것들을 놓았다 하자. 이것은 거기까지 올라간 자만 얻는다. 공정하게 하려고 이같이 '최고 것'과 '상, 중, 하에 해당되는 것들'을 놓은 것이다.

10. <큰 작품>을 사려면, '큰 돈'을 줘야 된다. <교회를 살 때>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건축하시고 예비하신 성전이라도 돈 없이 그냥 얻은 곳은 단 하나도 없다. 돈을 주되, 하나님의 것이니 3분의 일, 4분의 일, 5분의 일, 혹은 6분의 일씩 깎아서 조금 헐하게 샀다.

11. 어떤 교회는 땅값만 줬다. 거기에 새 건물이 그냥 따라오기도 했다. 이곳은 기도를 많이 한 교회다. 기도할 때 실속 있게 큰 본당을 달라고 60일 동안 기도하고, 네 달 동안 또 기도하여 총 여섯 달 동안 기도했더니 땅값만 주고 새 교회를 사게 됐다. 건물 겉을 보면 작운데, 실속 있게 1000명이 들어간다.

12. <황금성 천국에 갈 때>도 개인이 기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과 공적을 세워야 된다. 조건과 공적이 전혀 없으면 안 된다.

13. <구원하는 자>가 대신 해 주고, 자기 것을 줘서 그 공적으로 휴거됐다.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휴거됐다고 한 계시가 많다. <주의 은혜>로 휴거되는 것은 '300선 정도'다. 나머지는 자기도 해야 된다.

14. 가치를 모르면, 황금성 천국에 가서 황금 보석을 보고도 돌 취급한다. 고로 절대 휴거 유지가 안 된다.

15. 하늘이 해 쬘어도 가치를 모르니, 방구석에 버려두고 썩힌다. 고로 안 해 주는 것이다. 가치를 모르면, 해 쬘도 없 어지기 때문이다.

16. 귀히 알아야 준다.

17. 성자가 주와 같이 ‘휴거 300선’을 해 줘서 황금성 천국에 들어갔어도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그 영이 점점 땅으로 내려온다. 그러다 신급 자격도 뺏겨서 일반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도 육신은 자기 영이 ‘휴거의 영’이 된 것으로 안다.

18. <휴거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자>는 그 영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면 80% 정도 맞다.

19. <휴거의 가치를 알고, 매일 휴거의 삶을 사는 자>는 모두 휴거 300선 이상 다 넘어가 있다. <휴거 700선>은 넘어 가야 마음이 놓인다.

20. <휴거 1000선>은 가야 된다. 이는 ‘최고 선(線)’을 넘어간 자다.

21. 성경에서도 <은혜>를 비유로 말하며 “은혜가 발목까지 찼다. 허리까지 찼다.” 하고 표현했다. 또 “미지근하다.” 혹은 “뜨겁다.”라고도 했다.

22. <휴거 1000선>은 ‘물이 끓는 단계’다. <휴거 700선>은 ‘물이 70도 정도 된 단계’다. <휴거 300선>은 ‘물이 30도 정도 된 단계’다. 온천물도 25도가 되면 허가가 난다. 그러나 목욕탕 물로 쓰려면 물 온도가 40도는 넘어야 된다. 휴거 300선이 이와 같다. 휴거 300선으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본인이 행해서 물이 끓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리함으로 휴거 500선, 700선, 1000선까지 해야 된다.

23. <휴거 300선>은 ‘연애하는 단계’다. <휴거 500선>은 ‘약혼한 정도’다. <휴거 700선>은 ‘결혼한 단계’다. <휴거 1000선>은 ‘사랑 관계하는 단계’다. <휴거>에 대해 쉽게 알아듣도록 ‘숫자’로 말해 주었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새벽에 또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꿈에 보는 것>도 보통으로 보면 ‘근본’은 못 본다. 성령님이 근본을 보여 주실 때만 안다.

2. <휴거>는 보통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진실로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행해야 마음이 놓인다. 자기가 “잘하자!” 하고 마음먹고 하면 된다.

3. 같은 열차에 탔어도 멀리 있으면 이야기도 못 한다. 삼위와 주와 늘 이야기하고 동행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해야 된다. 마치 금메달을 따는 선수같이 매일 행하기다. 그러면 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목적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 황금성 천국을 주면, 그는 거기에 가서도 안 하니 삼위는 “괜히 쬘다.” 하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잘 쬘다. 그 자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정말 기적같이 한 자야. 절대적으로 한 자야.” 하시도록 해야 된다.

5. 귀한 것을 쬘어도 가치를 모르고 시원찮게 하는 자에게는 안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따지시는지 알아야 한다.

6.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만큼, 조건이다.

7. 가령 배우자를 택하는데 처음에 ‘얼굴’만 보고 만족하고 택했다 하자. 살면서 ‘얼굴만큼 몸도 아름답고 멋있겠다.’ 하고 보니, 기대에 어긋났다. 그때 ‘몸은 제대로 못 보고 얼굴만 봤네. 어떻게 하지?’ 하고 미련을 품고 후회한다. <신앙>에서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아쉬움이 없으시도록 자꾸 자기를 만들고 단장해야 된다. 빨리 행하여 갖출 것을 갖추고, 자기를 밤낮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100% 해라.” 하신 말씀에 다 들어 있다.

8. 하나님은 다 갖춘 자에게는 미련 없이 주신다. 다만 최고 조건을 세워야 주신다.

9. 하나님은 ‘최고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자기 살덩이같이 영원히 사랑할 자에게 주신다. <최고 것>을 받으면, 그 몸이 최고 것을 대신하게 되니, 하나님도 “내가 나의 최고 것이 됐으니, 내가 네게 잘 줬다.” 하면서 속 이야기를 하신다. 이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도망칠까 봐 걱정했어요?”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네게 줬어도, 네가 나갈까 봐서 불안했다. 불안하게 사느니 아예 둘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녹이듯 하자. 그래서 ‘한 덩이 사랑’으로 만들자.” 하신다. 아예 ‘한 덩이’로 만드는 정도까지 하면, ‘휴거 1000선’이 된다. <사랑>을 빼면, ‘휴거 1000선’을 넘어갈 수가 없다.

10. 가령 ‘콩만 한 순금’이라도 자기가 일을 해서 사 와야 순금 덩이에 넣고 하나로 만든다. 그러면 자기도 주인이 되어 그 금덩이를 쓴다. 작아도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만 받으신다.

11. <구약인들>은 일평생 했어도 ‘종’에서 못 넘어왔다. <신약 때>가 돼서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녀급 사랑을 하는 자만 ‘새 시대 신약’으로 넘어왔다. <신약인들>도 2000년간 ‘자녀급 사랑’을 했어도 ‘신부급’으로 못 넘어왔다. <시대 보낸 자>를 믿고, 그가 전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신부급’으로 넘어온다.

12. <휴거>를 뺏기면, 본인이 다시 조건을 세워야 된다. 본인이 안 하면, 영원히 안 된다. <조건을 세워야 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13. <당세 한때>다. 마치 여름 한때 꽃이 피는 기간과 같고, 제철 과일이 열리는 기간과 같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자의 욕을 쓰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신다. <한때>만 남아 있다.

14. <휴거>는 ‘많은 자기 백성들’ 중에 ‘사랑하는 자’를 고르는 격이다. <시대 신부들>이다.

15. 하나님은 ‘영’을 보고 택하시고, ‘행위’를 보고 택하신다. 이는 과수원지기가 나무마다 열린 열매를 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만 고르는 격이다. 두세 번 골라내고 나서, 이후 나머지를 다 따 간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각자 실력껏 영의 세계에 가서 보게 하시고, 계시자들에게 보여 주며 전해 주게 하신다.

16. 하나님은 ‘육신의 외모’도 안 보시고, ‘영의 미’와 ‘영의 형상’을 보고 뽑으신다.

17. <육신>은 미인인데 영계에서 그 영을 보니, 휴거도 안 되고, 신부 옷도 안 입고 있었다. <영>이 성장을 못 해서 키도 작았다.

18. <제대로 예비가 안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같이 못 간다. 육신을 가지고 행하여 어서 자기 영을 키우고 신부 되어 휴거 700선, 휴거 1000선으로 올라라.

19. <휴거 300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 마치 <봄>이 됐는데 ‘봄에 할 일’을 안 하고 ‘지난 겨울에 할 일’을 하는 격이다.

20. 자기를 만들기다.

21. <하늘 신부>가 세상에 빠져서 놀고, 뽀짝뽀짝하고, 서운함 타고, 변화무쌍하면 ‘신부 자격’이 안 된다. 비교해 보면 본인도 “나는 정말 아니구나.” 하고 창피해한다. 고로 다른 자를 뽑는다.

22. <월명동>에 돌, 나무, 잔디성전, 운동장, 건물, 호수, 수영장 등 갖출 것을 갖췄듯, 저마다 <신부>로서 갖출 것을 갖춰야 된다.

23. <차원이 낮은 자>는 딱 보면 보인다. 이런 자들은 다시 만들어야 된다.

24. 월명동의 작품들을 보면, ‘최고 것’은 다른 것들과 비교가 안 되게 보인다. 최고 큰 소나무 옆에 있는 일반 소나무와 같이 표가 난다.

25. 자기를 만들어서 ‘완성’해야만 해결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동안 욕이 안 한 것이 화면에 보여 다 드러나니, ‘내 영이 저 정도인가?’ 하고 창피해한다.

26. 매일 해야 된다. <근육 운동>도 매일 600회, 700회씩 정해 놓고 절대 하듯이, 자기가 할 일도 절대 해야 된다.

27. <영도 잘되고, 욕도 잘되는 방법>은 ‘절대 꼭 하는 것’이다. ◎ 어제와 오늘 잠언에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휴거>는 절대 자기 행위대로 된다.

2. 자기는 많이 행했다고 하나, 실상 그렇지 않은 자가 80% 이상이다. 계획적으로 계속 행해야만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 영’이 형성되어 있다.

3. <볼펜 한 자루>는 백지를 앞뒤로 30장 정도 쓰면, 그제야 끝이 온다. 약 4시간 정도다. 이에 해당되는 장수(張數)를 쓰기 전에는 펜에 잉크가 남아 있다. 글에 빠져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써야 ‘극’에 오른다. 이같이 <휴거>도,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조금만 하는 것>은 ‘지나가다 간식으로 풀빵 사 먹는 격’이다. <끝까지 해 본 자>는 안다. 고로 <해 본 자>를 따라 해라.

4. <주>도, <선지자>도 천 리 앞에 목적을 놓고 그만큼 가야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 고통을 다 겪으며 간다.

5. <한 자>는 <안 한 자>와 차이가 너무 크다.

6. <한 자>는 ‘한 자’끼리 통한다. 대화 거리가 있어서다.

7. 하나님도 하셨고, 성령님도 성자도 하셨기에 ‘한 자들’만 그 차원에서 삼위와 같이 존재한다. 거기서 함께 사연을 나누며 이야기한다.

8. <한 자>는 했기에 ‘자기 영’이 그같이 아름답게 형성된 것이다. 그 영을 가지고 영원히 보람을 누리며 좋아한다.

9. <하는 자>는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10. 매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최고 극으로 안 했기 때문이다.

11. 성령님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최고로 해서다.” 하셨다.

12. <서해안 밀물>이 그냥 멈췄겠느냐. 거기에 모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 밀물이 멈추는 기적을 보이신 것이다. 또 밀물을 멈출 만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13. 한번은 어떤 자가 폐암 말기라고 하며 기도해 달라는 보고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가 진짜 폐암 말기냐?” 하며 안 믿는다고 하기에, 그에게 간증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게 했다. 고로 모두 밤낮으로 목숨 걸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니, 결국 사망 줄을 끊고 살았다. 기적이다.

14. <신학>도 지난 10년 동안 한 것 중에 이번 17기 신학이 제일 잘했다.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 <휴거>로 평가하면, ‘휴거 700선을 넘어가는 정도’다. 마치 ‘월명동 연회장을 완성한 것’과 같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전체가 그 정도로 하면, 섭리사가 배로 크다. 이들은 신학 졸업을 해도, 계속 그같이 할 것이다. 모두 ‘실천자들’이 되었다. 어서 계속 행하여라. 극으로 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15. 그동안 주는 환난 때도, 시대가 못 하게 막아도, “해라. 부지런히 해라.” 하고 숨넘어가게 외쳤다. 그래도 안 한 자는 겨울에 추위에 떨며 거리를 다닌다. 그때 행한 자는 집을 다 짓고 방 안에서 창문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 이야기했어도 놀면서 안 했다. 문 열지 말아라.” 한다. 고로 추위에 이를 갈며 한 계절을 밖에서 살아야 된다.

16.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리도 하자고 해도 안 하더니, 그 좋은 휴거에서 내려온다. 다시 하려면, 전보다 10배는 더 조건을 세워야 하고 혼자서 해야 된다. 그때는 처음이라 주가 결사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몽땅 다 조건을 세워 줬다. 그때 성자가 “나 이제 안 온다.” 하시며 3년 동안 그 욕을 쓰고 외쳤다. 이를 알고 <휴거>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귀히 안 여기면, 뺏긴다.

17. 안 하면, 그보다 더 나은 자를 반드시 세워서 신부 역사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정녕코 이룬다.

18. 월명동 돌이 무너졌을 때도 처음에는 충격 받고 실망했지만, 다시 돌을 구해서 쌓았다. 다 쌓고 나니 모두 하는 말이 “잘 무너졌다. 전보다 더 큰 돌을 사서 쌓으니 더 웅장하다. 더 잘 쌓았다. 전의 것보다 진짜 표가 나게 낫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 했다. 여섯 번까지는 기어이 한다. 여섯 번째 쌓을 때는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제일 좋은 돌들을 사다 쌓았다. 고로 미련도 없다. 그런 돌들은 지금 살 수도 없다. <호피석>은 한국에도, 외국에도 없다. 또 그때 쌓은 70톤, 87톤 애석이나 오석도 지금은 없다.

19. 섭리사를 나가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그보다 더 나은 자를 데려오신다. 기어이, 정녕코 행하신다.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을 월명동 자연성전을 보이듯 보이신다. 보이니, 부인하지 못한다.

20. <자기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자>는 ‘신부급’이다. <따라 하는 자>는 ‘자녀급’이다. <자기가 해도 되는데 남에게 시켜서 하는 자>는 ‘종급’이다.

21. 세상에서도 애인과는 하루에 30번 이상 전화하고 통한다.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진짜 삼위의 신부가 된 자들>은 늘 대화하고 묻고 행한다. <신부>는 ‘행위’로 안다.

22. <안 하는 자>는 ‘그 차원에 있는 자’다.

23. <자기 행위>가 ‘자기 선(線)’을 긋는다.

24.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최고 것’을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 끝까지 행하고, 최고 극으로 해야 된다. 이같이 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 줬는데 안 하면, ‘하는 자’에게 넘어간다. 이름을 지어 줬어도 안 하면, 별 볼 일 없는 자가 되고 ‘큰 빛’이 ‘촛불’이 되듯 한다. <이름>은 ‘간판’이다. 운영이 안 되면, 문을 닫는다.

25. <행위의 빛>을 해같이 발해야 된다. <안 하는 자>는 빛을 잃고 끝난다. 그 영은 ‘영원한 어둠의 세계’에 처해 간다.

26. <종자>는 못 속인다. <돌>은 비를 맞아도 부드럽게 닦이고 빛이 난다. 그러나 <흙>은 떠내려간다.

27. <자기>를 계획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보통’으로 그냥 있다. <월명동 소나무>도 범석 목사가 소나무를 ‘주’라고

생각하면서 퇴비하고 키운 것은 그중에 거목이 되어 표가 나게 커 있다. 보통으로 둔 것은 다 비슷하다. 이같이 자기를 계획적으로 키워야 다른 차원에 거하게 된다.

28. 어떤 자는 환난 때 정신일도(一到) 하고 행해서 크고, 어떤 자는 파도에 밀려간다.

29. <여자>는 ‘하와’다. 명심해라. 변화무쌍하다. 그러나 하기만 하면, 남자보다도 더 잘한다. 영계에도 잘 다니고 대단하다.

30. <자기 주관, 사고, 근성>을 못 버리면, 깨진 독에 물 붓기다.

31. 황금성 천국의 가치를 알고 살아라. 모르면, 헛수고가 된다.

32. <휴거 1000선>까지 희망을 걸고 해라.

33. <과정>은 변화무쌍하다.

34. 주와 일체 되어 절대 온전해라.

35. 하나님은 보낸 자의 욕을 쓰고 행하시니, 그가 ‘표상’이다. 이미 다 하고 나왔으니, 영영하다. 주께 붙어라. 펜도 이제 끝이다. 말씀도 끝이다. 이같이 끝까지 해라.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을 어린아이를 통해 주신다고 안 믿겠느냐.

2.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 전하셔도, 그를 통해 주는 것이 합당하니 그리하신 것이다. 고로 믿고 행해야 된다.

3. <심부름꾼>이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문제다.

4. 어린아이가 중요한 물건이나, 돈이나, 내용을 가져와서 전달하는데 어린아이가 전달한다고 무시하고 안 받겠느냐. 시대 계시도,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주가 주는 것도 그러하다.

5. <계시>도 곤충이든, 짐승이든, 그때마다 자기 주관권 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신다.

6. <목적>이 문제다.

7. <깨우쳐 주는 것>이 뜻이기에 곤충이든, 짐승이든 그때마다 있는 것으로 보이신다.

8. 사람이 없는데, 사람을 통해 계시해 보이시겠느냐. 그때마다 그 주관권 안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신다.

9. 하나님은 만물을 ‘글’로 보이시며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깨우쳐 주신다.

10. <계시하는 자료>가 문제가 아니다. <내용>이 문제다.

11. <계시하는 만물>은 ‘뜻’을 깨닫게 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12. 예수님은 사람을 두고 ‘새’로 비유하셨다. 예수님은 새들을 보며 말씀하기를 “새들은 농사를 안 짓고도 먹고 사는 데, 하물며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사는 게 뭐가 그리 문제냐. 하나님이 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라.” 하였다.

13. 사람이라고 해서 해당도 안 되는데 ‘큰 짐승’에 빗대어 표현하지 않는다. 해당이 돼야 그 사물이나 만물로 보이며 말한다.

14. <비유>는 ‘존재물의 실상’을 들어 말한다.

15. <비유한 것>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 거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다.

16. <성경의 비유>를 그릇되게 푸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을 두고 문자 그대로 ‘구름’으로 푼다. 이들은 근본을 모르는 것이다.<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한 것이다.

17. 무엇을 두고 비유하였는지 - 이것을 아는 것이 ‘답’이다. 이것을 푸는 자가 ‘주인’이다.

18. 성경에서 불로 심판한다고 했으면, 무엇을 두고 ‘불’로 말한 것인지 알아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하셨다. 하나님은 불 같은 말씀으로 비진리를 태우고, 소각하고, 또 마음을 뜨겁게도 하신다. 고로 <성령님>도 ‘불’로 비유한다. 또한 <불>로 그릇도 만들고, 각종 기계나 기구도 만든다. 이같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든다. 말씀과 진리 등 모두 ‘불’로 비유한 것이다.

19. 하나님은 <근본>을 숨기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존재물의 모양과 형태와 비슷하고 같은 의미가 있기에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지혜로운 자, 기도하는 자, 온전히 따르는 자>만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20. <악인>은 ‘잡초, 혹은 밭에 난 가라지’로 비유하였다. <잡초나 가라지>는 ‘곡식’을 위해 뽑아 없애야 하듯, <마음의 잡초, 생각의 잡초>를 뽑아 없애고, <악인들과 악평자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없애라는 것이다. 비유를 모르면, 밭에 난 잡초나 뽑게 된다. “잡초 같은 마음, 생각, 행실을 뽑아 없애고, 악을 행하는 자를 자기 마음에서 뽑아 없애라.” 함이다.

21. <비유한 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름만 쳐다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미련한 자들’이 된다.

22.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23. 모르면 답을 못 쓰니 늘 시험에서 떨어지듯, 모르면 땅에서도 영계에서도 하늘 주관권에서 늘 떨어진다.

24. 하나님은 ‘계획하신 때’가 되면 메시아나, 선지자나, 사사나, 사도나, 시대마다 해당되는 자들을 보내시어 자신의 뜻을 펴신다.<아는 자>만 알고 따라간다.

25. 세상의 경제, 정치, 문화, 종교도 모두 ‘아는 자’만 알고 따라간다. <모르는 자>는 모른다.

26. 모르면, 때가 되어 끝나고 다 갔어도 기다린다. 모르고 사는 것같이 억울한 것도 없는 것이다.

<2018년 4월 1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가사>가 다르면, 그 내용에 따라 ‘곡’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야 한다.

2. <가사>가 다른데 거기에 ‘세상 곡’을 붙이면, ‘새 시대 기쁨의 새 노래’가 슬픈 곡이 된다.

3. <가사>에 따라 ‘곡’이 다르고, ‘심정’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다.

4. 내용이 슬프면, ‘슬픈 곡과 소리’다.내용이 기쁘면, ‘기쁜 곡과 소리’다.

5. 대화할 때도 ‘내용’에 따라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 이같이 ‘가사’에 따라 ‘곡’도 ‘소리’도 달라야 된다. 구성지게 불러야 된다.
6. 사람은 나무랄 것이 없다 해도 ‘옛것’이나 부르니, 그 노래에 ‘영원한 것’이 없어서 듣기 싫다. <부르는 자>까지 보기 싫다.
7. 사람이 좋아도 그 행위가 나쁘고 하는 말이 좋지 않으면, 그로 인해 그 사람까지 나쁘게 보이고 싫은 것이다.
8. <그릇>이 ‘금 그릇’이라도 ‘그릇에 담긴 것’에 따라 싫어지기도 하고, 나쁘게 보인다.
9. <미인>, <미남>이라도 ‘그 마음에 담긴 것’에 따라, ‘행위’에 따라, ‘그가 주장하는 것’에 따라,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 사람까지 싫고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10. <미인>, <미남>이 노래해도 ‘옛것’이나 부르고 뒤떨어진 행동을 하면, 사람까지 싫은 것이다.
11. <인생 일생에만 속해 사는 육적인 자들>은 인생 100년만 보고 살고, 또 그중에서도 ‘꽃피는 기간’만 몇십 년 보고 사니,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잡는 자들>은 그들을 아예 ‘하루살이’ 보듯 한다.
12. <영원한 세계>에 비해 ‘인생 영광 몇십 년’은 ‘하루’도 안 된다. 고로 <영에 속해 영원히 사는 자들>은 ‘육에 속해 사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해도 “불쌍하다.” 하고, 그 행위들과 영광을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가 잔칫집에 들어서 한 끼 먹고 떠나는 것같이 본다.
13. <세상 노래 가사>도, <내용>도 ‘하루살이 같은 가사’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그리 소리 내며 즐긴다. 늘 ‘그 노래, 그 가수들’이 다람쥐가 쳇바퀴 속에서 늘 돌듯 도는 광경이다.
14. <세상 노래>는 ‘육체 덩이가 굴러가는 곡들’이다. ‘늘 퇴폐에 속한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이다. <사랑에 배신당한 가사>가 아니면, <사랑에 미친 가사>들이다. 계속 들으면 거부감이 드니, <노래>도, <그 노래를 부른 사람>도 싫어졌다. 이같이 사람도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 소리’나 하고, ‘육에 속한 이야기’만 하면, 마치 세상 노래 가사가 듣기 싫듯 <그가 하는 말>도 듣기 싫고, <그 말을 하는 자>까지 싫어진다.
15. <새 시대>에 속해 노래하고, ‘영원한 것’을 노래하니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은지>는 천국에 가서 천년만년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지 않은 자가 사망에서 천년만년 몸부림치며 사는 것’을 봐야 그 가치를 안다. 또 천국에서 살면서 ‘같은 시대에 살다가 신앙을 팔고 제 길을 가며 세상을 즐긴 자들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 그제야 ‘세상에서 주를 만나 배우고 따른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천국에서 천 년 동안 혼인 잔치하는데, 그때까지도 ‘신앙을 팔고 살던 자들이 사망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세상에서 주를 만나 구원받고 휴거된 것의 가치를 정말 안다. 미리 이야기해 주니, 현재가 얼마나 중한지 가치를 깨달아라.
16. 하나님은 가치를 알라고 가끔 지옥에 가서 보게 하신다. 세상에서도 ‘섭리역사의 가치’를 알고 깨닫도록 ‘사망권에 사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

<2018년 4월 1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영적인 자>는 삼위와 주를 항상 ‘영’으로 대하고 살지만, <육적인 자>는 특별한 때만 그리 대하고 사는 줄 안다.
2. <신앙의 세계>는 ‘영 중심 세계’다.
3. <영적인 역사>를 중심하여 펴니, ‘육적인 자’는 모른다.

4. <영적인 자>란, 기도하여 신령하게 삼위와 그 보낸 자의 생각대로 사는 자다.
5. <육적인 자>는 ‘육의 눈’으로 봐야 보이고, 느끼고, 그제야 안다.
6. <영적인 자>는 육으로 안 봐도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고 깨닫고 안다.
7. <영적인 자>는 ‘영’으로 통한다.
8. <육적인 자>는 ‘육’으로 봐야 보고, 통하고, 생각한다.
9. <영적인 자>는 육신이 못 만나도 ‘마음과 생각’으로 통하고, ‘혼과 영’으로 통한다.
10. <영적>으로 역사를 펴지 않으면, 삼위는 역사를 펴지 못하신다.
11. 알면 ‘생각’도 달라지고, ‘행실’도 달라지고, ‘운명’도 달라진다.
12. 시간이 부족해도 ‘알면’ 할 수 있고, 시간이 많아도 ‘모르면’ 못 하게 된다.
13. 사람이 <알 때>와 <모를 때>는 ‘생각’도 다르고, ‘실천’도 다르다.
14.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가령, 자기가 가는 길에 괴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가겠느냐. 혹은, 자기가 타고 갈 차나 배나 비행기가 사고 날 것을 알면 타고 가겠느냐. 사고 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누가 그 차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그 비행기를 타겠느냐.
15. 알면, 생각이 즉시 달라진다.
16. 사람이 ‘알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엄청난 것인지 그 권세를 깨달아야 된다.
17. 하나님은 도우실 때 알게 해 주신다.
18. <사명자>는 반드시 알게 하신다.
19. 이 시대가 주를 알았으면, 시대가 이렇게 안 되었다.
20.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은 ‘탄 세상의 생각’을 하고 살고, ‘그 삶’도 다르다.
21.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인생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행할 것인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고, ‘시대의 뜻’을 펴 가신다. <육>도 잘되고, <영>도 영원히 잘되는 뜻을 펴 가신다.
22. <육적인 자>는 배우고도 그 가치를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깨닫지를 못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산다.
23. <주>와 <휴거>와 <황금성 천국>과 <이 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자연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실천해야 된다.
24. <아는 자>는 그 차원으로 행하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대로 보통으로 살아간다.

25. <정말 제대로 아는 자>는 ‘위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함’도 다르다.
26. 알면, 1년 동안 못 하던 것도 즉시 하게 된다.
27. 알아야 빠르다.
28. <주>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깨달아라.
29. <주>는 ‘아는 것’이 다르다. <삼위일체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알았고, 또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알았다.
30. <구원자>는 ‘아는 것’을 가지고 육도, 영도 구원시켜 준다.
31. 제대로 아니, 삼위는 그 육을 쓰고 구원시키신다.
32. <주>는 ‘심판, 부활, 메시아 강림, 휴거, 죄와 의, 진리’를 알았기에 삼위의 몸이 되어 그 일을 행하였다.
33. 어려워도, 알므로 행하여 역사를 이룬다.
34.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됐어도 ‘자기 머리’를 의지하니, <주>와 ‘생각’이 다르고 ‘행위’가 달라서 모두 결길로 갔다.
35. 하나님은 어려워도 ‘아는 자’를 쓰고 그 뜻을 펴신다.
36. <교회>에서도 ‘그 일에 대해 신경 쓰는 자’가 먼저 알게 된다.
37. <아는 자>를 쓴다.
3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혜와 지식의 존재자’이시다. 삼위는 <보낸 자>에게 ‘할 일’을 알게 하신다.
3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의 시대 비밀’을 ‘보낸 자’에게 알리시고, 그 일을 실행하게 하신다.
40. <보낸 자>가 ‘머리’가 되어 삼위의 뜻을 가르치고 행한다.
41. <주>는 항상 ‘머리’다. <따르는 자>는 ‘지체’다.
42. <따르는 자들>이 ‘지체’가 되어 행해야, 삼위도 주도 그를 ‘지체’로 쓰신다. 고로 잘되고 형통한다.
43. <자기가 머리가 되어 행하는 자>는 자기 기대에도 어긋나고, 생각만큼 결실도 없으니 실망한다. 행여 됐어도, ‘육적’으로만 거뒀을이니, ‘육적 보람’만 있다.
44. <자기>가 머리가 되어 행하면, ‘목적’만 컸지 ‘실체’는 잘 안 된다. 됐어도, 작다.
45. <자기가 머리가 되어 생명을 관리하고, 선교한 것>은 실상 관리도 잘 안 되고, 생명도 이삭 줍듯 한다.
46. 자기 차원대로 하면, 해 봐도 ‘그 차원 이상’은 안 된다.
47. <주>를 ‘머리’로 삼고, <자기>는 ‘주의 지체’가 되어 주의 생각대로 행해야 매일 표적이 일어난다.

1. <주를 머리로 삼지 않은 자>는 ‘머리 없는 용’이다.
2. 저마다 ‘개성의 왕들’이다. <왕>을 ‘용’으로 비유하면, <주를 머리로 삼지 않은 개성의 왕들>은 ‘머리 없는 용들’이다. 고로 <머리가 없는 자들>은 모두 ‘주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삼아라. 그러면 모두 주와 하나 된다.
3. <주를 머리로 삼지 않고 사는 자>는 ‘휴거’가 안 된다.
4. <주를 머리로 삼고 사는 자>만 ‘시대 신부’가 되고, 그 영이 천 년 동안 혼인 잔치한다. <육>도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살게 된다.
5. 지금은 ‘휴거 때’다. <주를 머리>로 삼지 않으면, 몰라서 곁길로 가고, <영>도 ‘휴거의 영’으로 변화가 안 된다.
6. <변화>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산에서 <나무>를 베다 목재로 쓰니, ‘집’으로 변화됐다. <씨>를 심어 키우니 변화되어 ‘과일’이 열리고 ‘곡식’이 영글어, 먹고 마시고 기쁨과 보람을 얻고 살게 된다. <변화>는 이같이 엄청난 것을 얻게 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최고 목적>은 인생들이 그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것이다.
8. <휴거>도 알아야 행하여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고, 휴거된다.
9. 하나님은 오직 <보낸 자>에게만 ‘휴거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를 중심해서 ‘휴거’를 이루신다. 고로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할 때> 차원 높여 휴거된다.
10. 곡식이나 나무에 퇴비를 주면, 표가 나게 성장하여 변화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은 ‘퇴비’와 같다. 고로 <주의 말씀>을 받고 행하면, 즉시 표가 난다.
11.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은 곡식이나 나무에 ‘흙’을 뿌리는 정도다. 그 차원에 머물다 끝난다.
12. <삼위와 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실체로 행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행하니, 삼위와 주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13. <자기 생각>으로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한다.<주의 생각을 중심하지 않는 새 머리>와 ‘독수리 머리’는 다르다. <새 머리>로는 ‘독수리의 생각’을 못 한다.
14. <새 머리>로는 ‘독수리의 몸’을 못 움직인다. 그 머리로는 높이 날 수가 없다.
15. <자동차 엔진>으로는 ‘비행기 몸체’를 움직이지 못하듯,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시대 하나님의 뜻, 재림과 휴거 역사’를 펴지 못한다.
16. <구원받은 자>는 ‘구원한 자의 생각’과 다르다. 고로 <구원한 자의 생각>대로 안 하면, ‘자기 머리’로는 못 움직인다.
17. <주 머리>로 안 하면, 주 생각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18. <주>를 ‘머리’로 삼아야 표적이 일어난다.
19. <머리>는 ‘지체’에게 ‘행할 일’을 전달한다. <머리에 붙은 자>만 이를 알고 느끼며 산다.

20. <머리>는 ‘머리가 할 일’을 한다. <머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을 ‘각 지체’에게 전해 준다. 그리고 <지체>가 이것을 행하면, 하늘에 알리고 축복해 준다.
21. <주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으니 하늘로부터 받고, 이를 지체에게 전해 줘서 같이 행한다.
22. <주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면, 이는 ‘삼위의 계획’이니 표적이 일어난다.
23. 국가든지, 종교든지, 경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못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어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백성도, 따르는 자들도 알게 하신다.
24. <시대 보낸 자>가 ‘고난의 길’로 가니, 하나님은 <세상>도 고난의 시대를 따라가게 하셨다. <하나님>과 <시대 사명자>를 머리로 삼지 않고, ‘여우, 늑대, 족제비’를 머리 삼고 ‘사머니즘 우상’을 머리 삼고 행하면 하나님은 보낸 자의 고함을 받고, 땅에서 풀고 매는 대로 심판하시며 행하신다.
25. 하나님과 주를 머리로 삼지 않고, 주와 의논하지도 않고, 지체들이 서로 화평하게 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친다.
26. <여우>보다 ‘토끼’가 낫다.
27.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두 알고, ‘여우, 늑대, 족제비, 돼지, 곰, 원숭이들’을 잡았다. 하나님은 한번 하시면, 정녕코 행하신다.
28. 여우들, 늑대들, 썩는 종교들 모두 하나님은 때가 되어 드러내시니, 온 국민이 알게 하신다.
29. 하나님과 성령님은 섭리사 환난 때, 민족의 환난 때, 연말 심판 때 사명자도, 따르는 자들도 기도하게 하셨다. 그 때 ‘땅의 일들’을 다 고하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드러내시고, ‘세상 법’으로 심판하셨다.
30. <우상 신앙>은 망한다. <땅에 보낸 자>는 이것을 아니,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 고했다.
31. <말세>는 ‘끝나는 때’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32. <우상>은 망하고, ‘여우, 늑대, 이리, 사자들’은 잡아 가둔다.
33. <하나님의 것>과 <국가의 것>을 도적질하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잡으신다. 예전부터 대대로 주권자만 되면 ‘국가 소유의 물질’을 착취하니, 하나님은 그들이 ‘법의 재판’을 받고 착취한 것들을 다시 내놓게 하셨다. 고로 <주>는 이것을 알고 온 민족과 세계를 대표해서 늘 기도했다. <자기의 것>과 <국가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알고 행하여라. 수고의 대가는 받아도, ‘착취와 도적질’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정녕코 드러내시고 파헤치신다.
34. <주>가 말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동안 깨닫게 해 줬는데도 안 하니,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여건을 틀어 안 되게 하시고, 육신도 쳐서 짓값을 받고 깨닫게 하신다.
35. 알면, <생각>이 다르다.
36. 하나님은 “각자 자기 차원, 자기 생각대로 살게 그냥 놓아두어라. 억지로 하게 하지 말아라. <썩는 짓을 하는 자>도, <불의하게 하는 자>도 그대로 두어라. 때가 되면 행위대로 다 심판한다.” 말씀하셨다.
37. <주를 머리 삼지 않고 하는 자>는 ‘돌포도’와 같은 자들이다.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하는 자>는 ‘참포도나무의 열

매'와 같다.

38.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한다고 하면서 막상 실천할 때는 '자기 생각'으로 한다. <심판에 해당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39. 세상에 살 때 아무것도 모르던 자를 데려다 놓고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고, 사명도 주었다. 그런데 감사 감격하지도 않고, 충성하며 순종하지도 않고 잔머리나 굴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알고 '자기 구원의 날'에 안 도우신다.

40. <주>를 맞아야 '삼위'를 맞는다.

41. <주>를 머리로 삼고, <성령의 감동>으로 뜨겁게 열심히 사는 것이 '주를 맞기 위해 예비하는 삶'이다.

42. <자기 머리>를 비워야 성령님이 뜨겁게 감동을 주시고, 주를 머리로 삼게 된다.

43. <주>를 머리로 삼고 사는 휴거의 삶이다.

44. 각종 사명이나 원하는 것 등 모든 것은 '주'를 머리로 삼아야 받게 된다.

45. <주>를 '머리'로 삼아야 사탄도 물러간다.

46.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주를 머리'로 삼지 않는 자가 많다. 나이를 먹으면 주관이 강해져서다.

47. <숨은 것>이 드러나니 '좋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자른다. 그리고 다음 해에 새순이 나고 자라서 '좋은 열매'가 열게 한다.

48.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하는 말>은 '자기 뇌'에, '자기 마음'에 절도록 들어야 된다.

49. <자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절도록 기도해야 된다.

50. <자기 머리>로 하면, '차원 높은 휴거'를 못 이루게 된다.

51. 회개하여 소각해야, 하나님은 '심판'을 돌리시고 '축복'으로 실행하신다.

52. 성령을 받고 일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느냐.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하면, 조건이 되니 성령이 임하여 뜨겁게 역사하신다.

53. <주를 머리>로 삼으면, 그때부터 불이 오고, 열심을 내어 뛰게 되고, 능력이 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54. <시대>를 알면, 저 기성처럼 그리 살지는 않는다. 그 삶이 <자기 영혼이 앞날의 기약도 없이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같이 살게 두지는 않는다.

55. <주>는 '머리'라 알고, <지체>는 머리가 아니라 모른다.

56. <세상 어둠과 무지 속에 사는 자들>과 <구시대 구석에서 갇혀 사는 자들>이 소경이 된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을 보고 비웃는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을 보고 "미련하다. 불쌍하다. 억울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백 년같이 귀히 쓰며 '영원한 것'을 위해 바빠 살아간다.

57.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이 달라진 자들과 함께 역사를 뛰며 간다.

58. <시대의 복음을 전해 주는 자들>은 ‘예정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해 주어라.

59. 자기가 탄 배나, 자기가 탄 비행기가 사고 나서 다 죽는다는 것을 알면, 그냥 타고 가겠느냐. 모르니 <지옥의 삶>도, <죽음의 길>도 기뻐하며 희망으로 간다.

60. 하나님이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61. <생각>도, <실천>도 달라져야 ‘삼위와 주의 꿈’도, ‘자기의 꿈’도 이룬다.

<2018년 4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의 뇌와 생각>은 ‘세상 체제’로 인식되어 있기에, <영의 세계>도 그 같은 체제로 인식한다. 그러나 <육체>와 <영체>가 다르듯, 영의 세계는 ‘체제’가 다르다.

2. 자기의 <세상 수준>이 자기의 ‘영계 수준’이다.

3. <계시>도 자기 삶의 수준대로 받는다.

4. <잠언>은 ‘한 마디 말’로 ‘천 마디 말’을 대신한다.

5. 행해야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언(無言)하신다.

6. 하나님도 성령님도 <행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하지 않으신다.

7. <육의 지식>을 ‘영적’으로 연결시켜 깨달으면, 그것이 ‘신앙의 세계’다.

8.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이 발판이 되어 ‘하늘의 것들’을 깨닫고 알면, 그것이 ‘산 영의 지식’이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9. 가령 바위산을 보고 ‘바위와 산’에 대해서만 배우고 끝나면, 이는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이다. 거기서 끝난다. <바위와 산>을 두고 “하나님은 바위같이 튼튼하시고, 산같이 웅장하시다.” 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 된다.

10.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육적 지식’이 되고, ‘세례 요한 격’이 된다.

11. 하나님과 연결을 못 시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학문이다.” 하신다. 고로 제대로 아는 학문이 못 된다.

12.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데 있어서 ‘지식과 학문’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13. <철학>도 ‘인생’을 논하고, ‘존재물’을 논하는 학문인데,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육적 철학, 죽은 철학’이다.

14. 깨달아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된다.

15. 엄밀히 말하면, <가지고 있는 자>와 <소유한 자>는 다르다. 소유해야 ‘자기 것’이 된다.

16. <가지고 있는 것>은 ‘과일 밭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다. <소유하는 것>은 ‘과일을 먹는 것’이다. 과일을 먹으니, 살과 뼈에 영양이 보급되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17. <말씀>도 듣기만 하면 ‘가진 자’다. <소유하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음식을 먹고 살이 되고 피가

되듯, 말씀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

18. <휴거>도 말씀을 듣고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행해야 음식을 먹고 살로 변화되듯, <영>이 변화되어 휴거를 이루고 '영원히 소유하는 자'가 된다.

19. 과일이나 음식을 가만히 두면, 매일 깨끗이 닦아도 맛이 변하고 썩는다. <썩지 않게 하는 최고 방법>은 먹고, 살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10년, 100년이 가도 안 썩는다.

20. <휴거>도 '육'이 행하여 과일을 먹듯 하면, 육의 행위대로 '영의 형체'가 변화되어 영원히 안 썩고 빛이 난다.

21. <자기 육이 먹은 것>은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육'이 빛을 내듯이, <자기 육이 선하게 행한 것>은 '영'으로 변화되어 빛을 낸다. 그리고 <자기 육이 행한 것>을 '영'이 다 가지고 있다.

22. <종>은 '종 주관권의 종말'이 오도록 못 한다. <아들>은 아등바등해도 못 한다. <신부>만 '시대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주인이 되고, 주가 되어 한다.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생각>과 <실체>는 다르다.

2. <인식>과 <실체>는 다르다.

3. <생각>과 <실체>가 달라서 실패하고, 혹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겪어 보고, 시험도 해 봐야 된다.

4. 생활할 때 '연습과 실체의 삶'을 살아야 한다.

5. <실패한 자>라도 다음에 하면 성공한다. 이는 겪어서 알기 때문이다.

6. 연습하고 예비하고 하면, '실체로 할 때'는 잘한다.

7. <처음 하는 일>은 실수하게 되고, 실패까지 하게 된다.

8. <늘 하는 일>도 '기억'에서 잊으면 못 하게 된다.

9. 강하게 기도하면, <인간의 핵>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강해지고 담대해진다.

10. <몸>이 커도 '생각'이 약하면, 마치 <큰 차>에 '작은 엔진'을 단 것과 같아서 힘이 없다.

11.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강한 자>는 혼자 있어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외롭거나 쓸쓸하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다.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벗어난다.

12. <생각>을 강하게 하여라.<마음>을 강하게 하여라.

1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님과 교통하여라. 이야기하고 대화하여라.

14. <신>이 임하면, 자기도 '신'이 되어 담대해진다.

15. <생각>이 커야 '큰일'을 한다.

16. 생각만큼 고르고, 산다.

17. <생각>이 작으면, ‘큰 것’을 살 돈이 있어도 ‘작은 것’을 산다.

18. 생각대로 좋아한다.

19. <작은 생각>으로 ‘작은 수석을 좋아하는 자’는 큰 것을 싫어하니 ‘작은 것’만 산다.

20. <큰 생각>으로 ‘큰 것을 좋아하는 자’는 월명동 작품 돌과 같이 ‘100톤, 130톤, 500톤짜리 형상석’을 산다.

21. <영들>은 생각이 아주 크다. <큰 세계>를 보고 겪어서다.

22. <영의 세계, 천국의 것>은 다 크다. <집>도 크고, <환경>도 크고도 크다. <영들>도 크고 풍만하다.

23. <천국>은 ‘산’도 크고, ‘나무들’도 크다. <건물>도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크다. 이는 <영들이 사는 곳>이라 그러하다. <영들>은 ‘마음과 생각’이 크다.

24. <생각>을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라.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생들>은 ‘불확실한 인생들’이다.

2. <하겠다고 하는 자>도 아직은 불확실하고, <이미 가고 있는 자>도 과정이라 아직 불확실하다. <목적지까지 간 자>만 ‘확실성’이 있다.

3. <완성>되면, 그때는 확실하다.

4. 사랑해서 결혼하고 살아도, 이혼율이 너무 높다. 결혼하기 전에는 살아 보지 않아서 모르다가, 살아 보니 달라서 이혼한다.

5. 결혼하면 1차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자녀를 낳으면 2차 ‘자녀’로 하나 된다. 반면에 하나가 되어 살아도 가까이 살면 서로 흠이 보이니, 성격과 행위가 안 맞아서 헤어진다. 고로 불확실하다.

6.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성격이나 행위 등 실체가 다 맞지는 않는다.

7. 누구나 시장에서 과일을 사 먹듯, 누구나 <사랑>은 다 맞다. 하나님이 보실 때 ‘뜻’이 서로 맞아야 되고, ‘사는 길’이 서로 맞아야 된다. 사랑 외에 수십 가지가 맞아야 된다.

8. 흔히 사람들은 “궁합이 맞으면 산다.” 하는데, 이는 불확실한 말이다. 사랑 관계를 해서 안 맞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무지한 말이다. <뇌 과일>이 맞아야 된다. <육 과일>은 맞아도 일순간이다.

9. <삼위와 하나 된다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많다.

10. 세상에서도 ‘사랑’만 하면 다 같이 살 것 같아도, ‘생활’이 맞아야 되고, 서로 ‘생각’과 ‘사고’가 맞아야 되고,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희망으로 살게 된다.

11. <육 과일 사랑>은 실상 생활하면 처음과 100% 다르다. 식구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12. <물건>도 사기 전과 후는 다르다. 사 놓고 처음에 자기 것이 됐을 때는 더 좋아 써도, 오래 쓰고 나면 호기심이 없어지고 다른 물건을 더 좋아하게 된다. <음식>도, <각종 과일>도 그러하다.
13. <이성 사랑>도 호기심에 의해 세상으로 나가서 실컷 해 봐도, 몇 달이 지나면 ‘영적 고통, 내적 고통’이 닥친다. 그 고통은 상상을 못 한다. 마음이 곤고하고, 영적으로 곤고한데 ‘먹는 것’을 준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격이다. <마음>이 편해야 ‘육’도 편하듯, <영>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 이를 알고 살아야 된다.
14. <한 가지>는 해결됐는데, 다른 ‘영적 문제’가 닥치니 이는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다. 끼리끼리 모여 봐도 해결이 안 된다. 지옥에 가서 서로 모여서 위로하는 격이다. 위로한다고 ‘지옥’이 ‘천국’ 되겠느냐.
15.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 괴로움에 ‘산지옥’을 겪는다. 알팍한 판단을 한 것이다. 섭섭하고 서운함을 탈 때, 힘들 때, 화날 때, 환난 때, 육적일 때 판단을 했기에 100% 잘못 판단한 것이다. 100% 잘못 판단하고 나갔는데 되겠느냐.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는 곳이다. 주도 거기서는 못 산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견디겠느냐.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고통이 안 끝난다.
16. <여름>에 덥다고 물에 뛰어들어 계속 안 나오고 있어 보아라. <겨울>이 오는데 견디겠느냐. 견딜 수 없는데, 견디고 산다.
17. <고통>은 면역이 돼도, 연단이 돼도 갈수록 ‘고통’을 더 느낀다. <지옥에서 오래 산 자들>은 3000년, 5000년, 6000년씩 살아서 연단이 됐는데도 지금도 고통에 날뛰고 더 소리를 지른다. 왜일까? 처음 갔을 때보다 고통을 더 받으니까 화나서 괴로움에 소리를 더 지른다. 만 년씩 가면 더 괴로워한다.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서다. 계산하면, 안 가 봐도 다 안다.
18. <선 주관권의 세계>는 ‘악 주관권의 세계’에 대해 알 권한이 있다.
19. <악 편>은 ‘선 편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모른다.
20. <지옥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안 가 봐서 모른다. <천국에 갔다가 쫓겨난 자들>은 안다. <섭리사에 왔다가 나간 자>는 비교해 보고 안다.
21. 성경에서도 “갑절로 값아 주어라.” 했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안에서 살다 나가면, 처음에는 화가 나서 잘 모른다. 화날 때, 분노할 때 나가니, 그때는 ‘뇌 신경’이 변해서 모르는 것이다. <자기 육적 판단>으로 세상을 희망으로 본다. 그러다 후에 ‘뇌신경’이 정상이 되니, 그때는 다르다.
23. 섭리 안에서도 찬바람이 불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도 들어갈 수 있는 뜨거운 방과 같은 ‘주 품’이 있고, ‘삼위’가 계신다. 그런데도 나가서 <세상 광야, 허허벌판에 있는 자들>은 자기 체온으로만 그 추위를 견뎌야 된다. 고로 그 고통이 지속된다. <영의 구원>도 사라지고, ‘옛것, 근본 된 토지’를 직접계 갈면서 살아야 된다.
24.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휴거된 자의 영광’을 알겠느냐. 개인이 ‘세상 영광’을 다 누려도 한계가 있다. 일순간 지나간다. 그러니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겨우 ‘자기 사망권의 삶’을 산다. 그렇게 세상에 적응해서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은 ‘사망’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25. <삼위와 주>를 떠나서 살면, <벌>이 ‘벌통’을 떠나서 꽃 위에서 단물만 짜 먹고 사는 격이다. 전에는 벌통에서 ‘꿀’을 먹고 살았으나, 이제 벌통을 떠나서 사니 체온 유지가 안 돼서 병이 든다.
26. 인생을 멀리 내다보지 않을 때나, 화날 때, 섭섭할 때는 모두 ‘새 머리’와 같다. 너무 좁게 보고, 코앞만 본다. 고

로 제대로 못 본다. <기도>하고, ‘정상’으로 봐야 된다.

27. <너무 좁게 보고, 코앞만 보고 나가는 자>는 마치 차멀미를 한다고 차에서 내려서 천 리 길을 걸어가는 자와 같다. 그러니 밤낮으로 걸어가야 된다. 차를 타고 가면 하루에 가는데, 걸어서 가니 100배도 더 고생한다.<신앙 길>도 이러하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받고 가는 길>이 ‘세상 영광으로 가는 길’보다 현실로 봐도, 실체로도 낫다는 것이다.
◎ 오늘 전한 잠언에 이어지는 나머지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4월 2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세상 영광의 길>은 ‘하늘 영광의 길’보다 못하다. <하늘 영광의 길>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2. <생명길>은 ‘고난 후에 영광의 세계’다. <세상길>은 ‘잠간의 영광 후에 영원한 고통의 세계’다.
3. <가인같이 한번 혈기 내고 나가는 자들>은 ‘감옥살이하는 무기수들’ 같다.
4. <참고, 희생하는 자들>은 몸부림쳐 일해서 좋은 집을 짓고 평생 사는 것과 같다. 결국 자유를 얻고 산다.
5.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6. 서로 힘들 때 잡아 주며 해라.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잡아 주면, 다 건널 수 있다. 건너고 나면, 후에는 길이 넓으니 잘 간다.
7. <힘든 자>가 있으면, 서로 돕고 해라. 그들도 축복해 주니, 때가 되면 잘된다.
8. 환난 때나, 어려운 때에 주도 돕고, 삼위도 도우신다.
9. <환난 때>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다. 이때는 ‘정상인 자’가 도와야 된다.
10. 혈기 날 때, 분노할 때, 섭섭할 때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된다. 그 주관권 안에서 생각하니 ‘정상’이 못 된다. 고로 이때는 ‘정상인 자’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또, <주>께 판단받고 <삼위>께 판단받아야 한다.
11. 정상일 때 판단해야 ‘정상’이다.
12. <파도칠 때> 보고 판단하고 “<바다>는 ‘풍랑의 세계’다.” 한다.
13. <겨울>에 보고 “<그 나라>는 ‘추운 나라’다.” 한다.
14. 사람도 화낼 때 보고는 “<그 사람>은 ‘혈기자, 분노자’다.” 하고 판단한다. 그 사람은 연기자라서 맡은 역이 ‘화를 내고 싸우는 역할’인데 그것을 보고 ‘혈기자, 분노자’라고 판단하는 격이다.
15. <치타>가 사냥한 동물을 먹고 ‘거북이걸음’으로 걸어가니, “저 동물은 정말 느리네.” 한다. 또 <치타>가 ‘사냥하려는 동물의 눈’에 안 띄려고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치타>는 늘씬하다더니, 번데기 같다. 다른 동물과 같네.” 한다. 언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치타가 뿔 때는 허리가 고무줄을 당기듯 늘씬하게 펴진다.
16. <사람>도 ‘언제 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17. 하나님은 3년을 지켜보신다. <열매>를 맺는지 보다가 안 맺으면, 도끼로 찍으신다.
18.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과일나무라도 땅만 차지하니 벤다.

19. <과일나무>는 ‘일반 나무’와 다르다. <과일>을 보고 심었기 때문에 ‘과일’을 안 맺으면, 그 과일나무는 도끼로 찍는다.
20. <하늘 신부>는 ‘사랑 과일’을 본다. 타락되어 이성 생활을 즐기니, 그에게서는 ‘과일’이 안 열려 주인이 찍었다.
21. <하와>도 ‘과일나무’였다. 아자수 같았다. 그런데 <열매>를 안 여니, 주인이 찍었다.
22. 타락하면, ‘사랑 과일’이 열지 않은 것으로 본다. 5년, 10년이 돼도 안 열면, 톱으로 자르고 뿌리도 캐낸다.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열매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금방 열매를 연다.
23. 저마다 모두 ‘영생의 과일나무’다. <말씀의 퇴비>를 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24. <상체 마음>만 ‘하나님 주관권’에 놓고, <하체 과일>은 ‘세상’에서 놀면 안 된다고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어도 그 말씀대로 안 하니, 결국 뿌리째 캐냈다.
25. <일반 나무>는 ‘나무’를 보고 심지만, <과일나무>는 ‘과일’을 보고 심는다.
26.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하와 때>도 그러했고, <신약 때>도 역시 자녀급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었다. 지금은 ‘결혼할 자들’을 택하는 때이니, 사랑을 더 귀히 본다.
27.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하기다.
28. 하나님은 <용서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은 것이 몇 번째냐?” 하지 않으신다. 다만, 죄를 지었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 재촉하신다.
29. 일단 바닷물에 들어가면 정화된다. 안 들어가면, 염분이 없으니 썩는다. <주>는 ‘바다’와 같다.
30. <주>가 화나서 용서 안 해 주면 성령님께 가고, 성령님이 “너 꼴 못 보겠다.” 하면 하나님께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잘 왔다. 용서해 준다.” 하신다. 만일 하나님도 안 된다고 하시면, 또 주께 가서 이야기하면 된다. 이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용서받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포기하면, ‘지옥, 사탄 몸’이 되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땅에서 그 육신을 쓰고 가시는데, 따라가다가 ‘개미 새끼, 개 새끼, 여우 새끼’를 쳐다보고 구경한다. 그러다 그것들과 친해져서 놀다가 ‘개미, 개, 여우 같은 자’를 사랑하기도 한다.
2. <강물>도 같이 흐르다가 남아서 고여 있으면, 햇볕에 증발되어 없어져 버린다.
3. <섭리역사>는 ‘강줄기’같이 흘러가는데 자기 혼자 ‘실 가닥’이 되어 살아가면, 세상에 흡수되어 끝난다.
4. <강물>도 약하면, 마른다.
5. <바닷물>은 마르지 않는다.
6. <꽃>이 피면 ‘사람’은 알고, ‘짐승’은 모른다.
7. <사람>도 꽃이 피듯 하니, 너무도 예쁘고 아름답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정말 잘 창조하셨다. <한계가 있는 육>도 이

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한계가 없는 영>은 어떠하겠느냐. 이같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함을 두고 육신 평생 동안 영광 돌려야 된다. 평생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곧 이것이니,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전능자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영을 ‘삼위의 모양과 형상’으로 변화시켜 <육>은 일생 동안 삼위를 사랑하며 살고, <영>은 영원토록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하며 살라 함이다.

9. <인간의 육신>은 인생 사는 기간이 짧으니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두시지만, <영>은 영원히 사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형상’으로 최고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신다. <자신의 것>이니 그리하신다.

10.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하기만 하면, 믿고 투자하신다. 고로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다.” 하지 않으신다.

11. <육>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매일 늙는다.

12. <한창 인생의 꽃이 피는 기간>은 ‘6~7년 정도’다. <지는 기간>은 ‘10년 정도’다. 고로 짧다.

13. <영>은 ‘아름다움’이 피면, 최고 아름다운 때가 계속된다. 거기서 더 아름답게 된다.

14. <세상 육신의 아름다움>을 다 합쳐도 ‘영 한 명의 아름다움’을 못 따라간다.

15. <아름다운 장소>도 ‘차원 낮은 자’는 보통으로 본다.

16. <생각의 차원>이 높아야 되고, 또 기뻐 흥분되어서 봐야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다. 혹은 아름다운 동물이다.” 한다. 그리고 <만물을 볼 때>도 제대로 보게 되고, 더욱 ‘미(美)’를 느껴 보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보통 생각’을 하고 보면, 보통으로 생각되고 느껴진다. <그의 신>이 임하여 봐야, 기뻐 흥분되어 제대로 보고 느껴진다.

18. <아름다운 것>이나 <아름다운 장소>를 보여도 거기에 대해 모르면, “보통이다.” 한다. 집중하여 생각하고 깨닫고 보면 놀란다.

19. <월명동>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조경 전문가들이 놀라고 감탄하며 극찬한다. <아는 자들>이 더 놀란다.

20. <시간>은 ‘쓸 때’는 길다. 지나고 나면, <하루>도 ‘한 시간’같이 짧고, <일 년>도 ‘하루’같이 짧기도 하다.

21. 인생 60년, 70년, 80년을 살고서 뒤돌아보면, ‘몇 년’ 같다. 이를 체험하려면, 모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된다. 인생 뒤돌아보면 이같이 짧으니, 어서 ‘영원한 것’을 해 놓고 살아라. 그러지 않은 자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의 영원한 고통’이 시작된다.

<2018년 4월 2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누구든지 <꾸준하게 하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나나니, 이는 행했기에 그러하니라.

2. <초침을 보면서 뛰는 자>는 ‘첨단의 시간의 표적’이 일어나는 고로, 스스로에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니라.

3. <잠깐의 틈 시간>에도 신속하게 행하는 자는 ‘엄청난 실적의 역사’를 남기느니라.

4. <빠르게 행하도록 자기를 만들고 사는 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하루에 30% 이상 더 많이 행하나니, 고로 <시간적>

으로 그만큼 더 많이 사는 자가 되느니라.

5. <표적> 중에는 ‘빨리하는 표적’이 있고, ‘완전하게 행하는 표적’이 있으며, ‘삼위와 대화하는 큰 표적’도 있느니라. 평소에 삼위와 생각을 맞춰 살면서 대화해야 ‘삼위와 대화하는 큰 표적’이 일어나게 되느니라.

6. <자기>는 ‘표적을 일으키는 몸을 가진 자’니라.

7. 각종 개성대로 행하여라.

8. <생각>을 집중하고 삼위를 부르며 대화하여라.

9. 삼위가 ‘자기 몸’을 쓰고 행하시게 하여라.

10. <생각의 표적>이 일어나야 <몸>도 행하여 표적이 일어나게 되나니, <삼위와 주의 생각>이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임하게 하여 그 생각으로 행하여라.

11. <마음과 생각>은 항상 ‘영’에 속해 집중하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하리로다.

12. <머리가 되는 자를 기증하여 만들어 놓은 법>을 ‘따르는 지체들’이 사용하면 많은 자들이 법을 범하게 되나니, 모두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이는 마치 <어른들의 법>을 ‘크고 있는 자들’에게 사용함과 같으니라.

13. 가령 어른이 되면 때가 지났기에 ‘이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나니, 그 생각을 ‘성장하는 자들’에게 사용하면 모두 울무에 걸려서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14. <하나님의 절대 법>을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지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신의 법’이요, ‘절대 법’이니, 인간은 연약하여 지킬 수가 없느니라.

15. <어른들>은 다 커서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어린 자들>은 힘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느니라.

16. <이성>도 ‘나이 먹은 자들’은 때가 지나서 호기심도 없고, 열광적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느니라. 고로 <다 성장한 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같이 너희도 하지 말아라. 나같이 너희도 지켜 행해라.” 하는 법을 주면, 그때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열렬하게 활동하는 때라 지키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 많은 자들이 ‘법의 울무’에 얽혀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장한 대로 ‘법’을 주시나니, 이를 깨닫고 할지니라.

17. <한 나라의 법>도 그러하니라.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 ‘성장한 선진국의 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인데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나라의 엄한 법’을 사용하면 맞지 않느니라.

18. <지도자들>은 다 커서 자기와 상관없으니 ‘성장한 자의 법’을 가져다 ‘어린 자들’에게 쓰느니라. 고로 많은 자들이 법에 걸려 고통을 심하게 받느니라. 이는 이치에 합당치 않은 법이니라.

19. <주권자들>도 그러하니라. 자기가 ‘백성’이 되니, 자기도 그 법에 걸려 심한 고통을 받느니라. 고로 그제야 깨닫고 후회하나니,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느니라.

20.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머리’라서 잘 걸리지 않으나, <백성들>은 걸려서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다 나라의 지도자였던 자가 머리에서 내려오면, 그들도 걸려서 감옥에 끌려 다니고 갇히게도 되나니 이 시대가 그러하니라. 이를 여호와 하나님께 고하였나니 “그러하다.” 하셨느니라.

<2018년 4월 2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이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인상 쓰고 화내면 미운 얼굴로 변해 버리듯, <신앙의 미>도 이미 가지고 있어도 그때마다 행위에 따라 다르게 되느니라.
2. <아름답고 예쁜 몸>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행위’나 ‘관리’에 따라 어느 때는 아름답고 예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원치 않는 미운 형상도 되느니라. <육의 몸>과 같이 <영의 몸>도 그때마다 자기 행위에 따라 그러하니라.
3. 계속 나쁘게 행하면, 늘 인상을 쓰고 사는 자와 같아서 영의 얼굴도 그런 인상으로 바뀌어 버리느니라.
4. 좋은 인상으로 살면 ‘아름다운 얼굴’로 되나니, 자기가 자기 얼굴을 ‘미의 얼굴’로 만드느니라.
5. <자기 몸>이 아름답고 멋진 자라도 매일 관리하지 않고 살면, ‘멋’도 잃고, ‘아름다운 형상’도 잃게 되느니라.
6. <영의 형상>도, <신앙의 미>도 ‘육’과 같으니라. <육>도 행위대로 형성되고, <영>도 그러하니라.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매일 삼위의 생각으로 살아야 자기도 그같이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이 되느니라.
8. <몸 관리>를 안 하면 바로 표가 나듯, <영>도 <혼>도 그러하니라.
9. 매일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행실 관리’니라.
10. 관리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일이 없나니, 고생돼도 매일 자기 얼굴도, 몸도, 마음과 생각도, 행실도 관리하고 만들어 자기를 재창조하여라. 그리함으로 육으로도,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행실로도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라. 그리하면 자기로 인하여 더 얻고, 더 기쁘게 되느니라.
11.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더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자기 즐거움과 기쁨의 복’이니라.
12.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 주셨어도 ‘차이’가 있는 것은 자기가 개성 안에서 더 가꾸지 않고, 만들지 않고,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니라.
13. 자기 얼굴을 천사의 얼굴이나 자기가 원하는 신의 얼굴이나 미인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행하면 그 모습이 금방 되느니라. 거기서 계속하면 그 모습을 갖춘 얼굴이 되나니, 이는 곧 자기가 행하여 만든 것이니라.
14. <마음>도, <생각>도 ‘위대한 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들어라.
15. <몸의 형상>도 ‘신의 모습, 미의 형상’으로 만들어라.
16. 본래는 아름다웠으나 관리를 안 해서 ‘미운 형상’도 되고, 혹은 본래는 아름답지 못한 자였으나 관리해서 ‘아름다운 형상’을 갖추기도 하느니라. 육도, 영도, 만물도, 건물도 그러하니라.
17. <육>은 관리해도 늙나니, <육>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를 구원한 주를 믿고 행함으로 ‘자기 영’을 만들어서 더 이상 없는 최고 아름다운 황금성 천국에서 삼위와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니라. 그러니 매일 너는 행하여라. 하다가 안 된 날은 ‘자기 영을 못 만든 날’이니라.
18. 얼굴도, 몸도, 마음도 ‘한 번’만 관리해 놓으면 오래가지 않나니, ‘하는 때’만 된 것이라 그러하니라. 그러니 몸도, 행실도 그때마다 매일 할 일을 해야 되느니라.
19. <마음과 생각>도 ‘관리할 때’만 되나니, 이를 위해 늘 근신하고 살아야 되느니라.

20.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여라.

21. 잘되지만 바라지 말고, 매번 잘하여라.

22. <자기>를 위해서 하면,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도 좋고 기쁘고 즐거우니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면,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전능하신 삼위>를 위해서 하면, 그로부터 오는 기쁨이 크고 인생 태어난 보람이 크니라.

23. <사람들이 예쁜 집을 짓고 사는 것>만 부러워 말고 자기도 그같이 예쁜 집을 지으면 되나니, 그리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 것을 부러워하게 되느니라. 자기가 못 할 때는 부러워했지만, 하면 자기를 과시하게 되느니라.

24. 하나님은 각자에게 ‘분복’을 주어 기뻐 살게 하였노라.

25. <하나님과의 사랑>을 목적하고 해야, 그 가치가 영원하니라.

26. 사람이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도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고 신비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놓지 못하면, 그때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이상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니라.

27. 반드시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신령하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위대하게, 예쁘게 만들어야 ‘삼위와 주의 짝’이 되느니라. 그래야 <성능의 빛>을 내며 쓰게 되느니라.

28. 만들어서 ‘누구’와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주적 가치’도 지니게 되느니라.

29. 사람도, 만물도 만드는 대로 그대로 되느니라.

30. 하나님은 <만든 모양과 형상>을 보시고 ‘어떻게 행하였구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구나.’ 하고 아시고 만든 그대로 대하시느니라.

31. 만일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다 ‘의의 세계’로 와서 의를 행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의롭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아시느니라. 고로 악을 행하였으면 회개하고, 조건을 세우고, 대가를 치러야 되느니라.

32. 너희가 할 것은 ‘마음과 생각을 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는 자기 몸매를 만드는 것과 같이 힘이 드나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그때는 ‘관리’만 하면 되니 쉬우니라.

33.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신앙>도 만들어 놓으면 쉬우니라.

34. <월명동 자연성전>도 만들어 놓으니 관리만 하면 되듯, 자기도 만들어 놓으면 관리만 하면 되니 쉬우니라.

35.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만들어야 삼위도 마음에 들어 기뻐하시고, 함께 좋아서 살게 되느니라.

36. <연결된 것>은 같이 해야 만들어지고 반응하느니라. 가령 <쇠>가 서로 연결돼 있으면, 한쪽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으면 다른 한쪽도 같이 녹게 되느니라.

37. <머리가 되는 자>를 따라 하면 되느니라.

38. 각 지체는 ‘머리’와 연결된 한 몸이니, 머리를 따라 온몸도 반응하느니라. 이같이 <주>와 ‘따르는 자들’이 그러하니라.

39. 한 번 안 하면 한 번 안 한 만큼 표가 나고, 어떤 것은 전체가 빛을 잃게도 되느니라.
40. <하는 재미와 기쁨>을 누려라.
41. 안 하면 편해도, 후에는 자기가 원치 않은 판 세상에 가 있게 되느니라.
42. <사랑받는 자>와 같이 하여라. 그래야 너도 그를 통해 사랑을 받게 되느니라.
43. <기준자>로 인하여 받게 되나니, 이는 ‘전능자의 법’이니라.
44. 아벨 중심, 가인들이니라. 주 중심, 세상인들이니라.
45. <주>로 인해 ‘사랑의 강’이 흐르느니라. <나머지>는 ‘넷물’이니라. 그중에 <사막>도 있나니, <사막>을 ‘강가’로 옮기도록 행하여라. <강>을 ‘사막’으로 옮기면 다 증발하나니, <강>을 ‘사막’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니라.
46. <지혜로운 자>는 이 잠언과 말씀의 비유를 깨닫고 행할지니라.
47. 매일 점진적으로 만들어야 제대로 만들어지나니, 이는 ‘전능자의 말씀’을 매일 점진적으로 주기 때문이니라.
48. <세상>을 대상으로 삼고 자기를 만들면 ‘육’으로만 쓰이고 끝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자기 육’을 만들고 그 행위대로 ‘영’을 변화시켜 만들면 영원히 존재시켜 황금성 천국에서 살게 되느니라.

<2018년 4월 2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다가, 천지 사방을 찾아보아도 없으면 그제야 정말 귀한 것인지 깨닫고 안다.
2.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
3. 지구상에서 ‘귀하고도 또 귀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자기 육>이다. <자기 영>이다.
4. <만들 수 있는 것>은 남들도 다 가지고 있다. 서로 만들기 때문이다.
5. <만들려야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귀한 것이다. 고로 <자기 인생>이 귀하고도 귀하다.
6. <자기>를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더 빛이 나게 만들어라. <자기>는 남들이 돈으로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귀하고도 귀한 존재다.
7.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셨으면 얼마나 귀하고도 귀하겠느냐.
8.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렇게도 귀한 것이다.
9. <월명동>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고 구상하시어 같이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하고도 귀한 것인지 깨닫고 알아라. 지구상에 둘도 없는 보석이다.
10. 아무리 귀하고 귀해도, ‘본인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한 것을 못 보고 못 깨닫는다. 고로 기쁨이 항상 ‘그 차원’만큼밖에 없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주와 함께 사랑하고, 귀하고도 귀하게 섬기고, 가까이 대하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 아라. 그러면 행한 대로 범사에 ‘귀한 것’을 주신다.
12.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것>이 ‘귀한 것’을 얻은 것이다.
13. <물건>도 귀하고, <자기>도 귀하고, <잠언>도 귀하다.
14.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몰라서 못 얻는데, 이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잠언’이다.
15. 알았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허락해야 되고 자기가 행해야 ‘귀한 것’을 얻는다.
16. <귀한 것>도 ‘육의 눈’을 뜨면 ‘육의 것’을 얻고, ‘영의 눈’을 뜨면 ‘영의 것’을 얻는다.
17.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얻어라. 그러면 ‘최고 귀한 것’을 얻은 자 다. 그로 인해 ‘정말 귀한 것’을 또 주신다.
18. <귀한 것을 모르는 자>는 눈으로 봐도 모른다.
19. <귀한 것을 얻은 자>만 ‘귀한 것을 보는 눈’을 떠서 각종 개성으로 알고 찾는다.
20. <영원한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나. 이는 ‘육’을 통해 얻는다.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해 얻는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상천하지의 최고 귀한 것을 이 시대에 때가 되어 주셨 다. 곧, <절대 삼위를 사랑하고, 그의 몸이 된 보낸 자와 사는 휴거의 삶>이다. 받고 귀하게 여기는 자만 안다.
22. <더 이상 없는 것>이 ‘휴거’다. <휴거>는 ‘하나님 역사의 최고 계획과 목적’이다. 이를 ‘휴거’로 표현했다.
23. <휴거>를 ‘과수원의 과일나무’로 표현한다면, ‘최고 목적으로 완성된 과일’이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최고의 목적지는 ‘휴거’다. 이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과 목 적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구 세상에 마지막으로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삼위의 계획과 목적’을 말씀하신 다. 그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믿고 행하여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삼위와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26. <최고>로 행하고, <최고>로 얻는다.
27. 땅에서 ‘육’으로 다 얻을 수가 없다. 얻어도 ‘육’은 죽으니, 혼과 영이 얻어서 ‘최고 영의 세계,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살게 한다.
28. <귀한 것>을 알아야 행한다.
29.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안다.
30. 자기가 주인 되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귀한 것’인지 모르면, 보통으로 취급한다.
31. 비유컨대, 어떤 자가 귀하다고 하는 돌들을 여러 개 사다 놓고 팔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돌>이 ‘서쪽 것’이니, 나머지는 그보다 못한 보통 것으로 보았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돌>은 크고, 모양도 다르고, 멋있었다. 그래 서 다른 것보다 훨씬 비싸게 값을 불렀다. 나머지는 순위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값을 불렀다.나는 그 사람

이 좋아하는 돌을 보고, 그것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고 멋있고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니 어떤 것을 더 귀하게 보고 택하시겠냐고 했다. 내 머리 차원으로는 이것을 택하겠다고 하니, 하나님도 “이것이다.” 하셨다. <이 돌>은 주인이 비싸게 부르는 것도 아니었고, 세 번째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값도 세 번째 값이었다. 이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어도, 자기에게 ‘취사선택권’이 있어도, 모르니 좋은 것을 제쳐 놓고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이다.

32. <종교>도 그러하니, ‘최고 좋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종교’를 택한다. 그러고서 금, 은, 동으로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 <이단들>도 ‘그릇된 것들’을 택하여 섬긴다.

33. <주인이 좋아하는 돌들>은 ‘자연 만물’과 닮았고, 자연스러웠다. 두 개 다 그러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돌>은 작아도 ‘인간의 형상’을 닮았고, ‘인간의 사랑의 핵 형상’을 닮았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 생명체’를 닮아야 더 가치 있게 보시고, 더 좋아하심을 알았다.

34. <자연 만물>은 ‘사람 밑’에 존재한다.

35. <만물>은 ‘육적 존재’이고, <사람>은 ‘영적 존재’다.

36. <사람>은 ‘영적 존재’라 더 가치가 있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닮은 형상’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대하신다. 고로 <돌>을 볼 때도 ‘사람을 닮은 형상’에 더 우선권을 주시고 크게 보셨다.

37. 하나님은 그냥 자신의 취향으로 보지 않으시고 ‘급수’를 따져 보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사람이 택한 것과 다른 것을 택하셨다.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이 최고의 생명체이니, ‘자신을 닮은 마음을 가진 선한 자’를 택하신다. 그래서 걸만 화려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겉은 못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선(善)을 닮게 행한 자를 택하신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반복)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신이 최고의 생명체이니, ‘자신을 닮은 마음을 가진 선한 자’를 택하신다. 그래서 걸만 화려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겉은 못해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선(善)을 닮게 행한 자를 택하신다.

2. 걸이 화려해도,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닮은 자>는 ‘세상’에 속하니 생명력이 없다. 고로 한 사람만 택한다면, 하나님은 ‘생명권에 속한 자’를 택하신다.

3. <돌 주인>이 자기만 최고로 생각하고 비싸게 파니, 아무도 안 사가서 20년 동안 안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돌이 색도 변하고, 더러운 이끼가 끼서 아무도 안 사 가는 돌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놓을까요?” 하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돌 주인도 옛날에 샀기에 그나마 그런 형상석이 있지,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 없다.” 하셨다. 고로 주인에게 돌의 본색이 없어지고 변했으니 그 값을 빼고 계산해서 한 개만 산다고 했다. 그랬더니 한 개는 안 판다고 했다. 대신 모두 사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주겠다고 했다. 결국 새 돌 한 개 값을 주고 일곱 개를 사 왔다.

4. <돌의 색>은 변했어도, ‘형상과 모양’은 안 변했다. <형상과 모양>을 보고 사니, 색이 변했어도 특별히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색이 변했어도 샀다.

5. <돌>은 20년 동안 내팽개쳐 놓았어도, 찢고 닦고 하면 ‘본연의 색’이 돌아온다.

6. <사람>도 회개하면, ‘본연의 빛’이 돌아온다.

7. <돌 주인>에게 묻기를, 돌의 색이 새까맣게 변했는데 닦지도 않고 왜 그냥 두었냐고 하니, 어차피 색도 버리고 돌 때가 꺼서 까맣게 됐으니 오석같이 자연스럽게 놓아두었다고 했다. <사는 자>는 그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니, 색이 변한 값을 다 깎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인도 자기는 이제 그런 돌은 취급하지도 않고 사 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지금은 색이 안 변하는 강돌을 사다 판다고 했다. 고로 이 돌을 팔아 없앴다고 하여, 그때 다 사 온 것이다.

8. 이 돌을 사다 비누칠하여 씻고 닦아 내니, ‘정신이 난 자’와 같이 본연의 색으로 돌아왔다. <죽은 돌>이 ‘산 돌’이 되었다.

9. <자기 인생>도 주인을 못 만나면 ‘죄의 때’와 ‘각종 근성’으로 인해 ‘색이 변한 돌’과 같으나, <새 섭리의 주인>을 만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죄의 때’와 ‘각종 근성’을 깨끗이 벗겨 내면 ‘새롭게 빛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이 돌같이 모두를 세상에서 값을 주고 사 왔다.

10. <사람 형상을 닮은 돌>과 <자연 만물을 닮은 자연스러운 돌>을 같이 놓으니, 서로 더 빛을 냈다. 이같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와 <그 대상들>이 일체 되어 하나 되면, 더 빛이 난다.

11. 이 돌은 전 주인이 ‘세 번째 순위’에 놓았었지만, 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은 차원 높은 자의 생각대로 ‘첫 번째 순위’에 놓게 되었다. 이 돌은 자기 전부터 ‘하나님 사랑 상징 돌’로 정한 돌이었다. 하나님이 사 주면, 그리하겠다고 한 돌이다. 고로 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

12. 원래 성자가 가시기 전에 사 주려고 했는데 주인이 비싸게 달라고 하여, 성자도 차라리 탄 것을 사서 월명동에 작품으로 놓자고 했었다. 고로 그때 못 사고 탄 것으로 사다 놓고, 나중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 돌을 사 주셔서 가져다 놓게 됐다.

13. <하나님 사랑 상징 돌>을 사 오면서 잠언이 300개 이상 나왔다. 깊은 시대 말씀을 받았다. ‘자기 것인데, 상대 것이다.’라는 깊은 잠언을 받고, 또 섭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계시의 깊은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받았다.

14. ‘<자기 몸>은 ‘자기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상대의 것’이다.’ 하는 최고 깊은 진리를 이 형상 돌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이 돌도 <주인 것>인데, ‘그 돌을 사랑하는 자의 것’이 됐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자신의 것>인데, ‘그 상대자, 절대 삼위를 사랑하는 자의 것’이 됐다. 절대 사랑하면, 제2의 주인이 된다. 고로 <돌 작품>도 ‘사랑하는 자, 신부의 것’이다.

15. 사랑하면, 주인 된다.

16. 사랑하면, 주인과 함께 주인 된다.

17.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면 그가 좋아서 영광 돌리고 사연을 나누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돌 주인이 20년 전에 그 돌을 사다가 그동안 그리 팔려고 했어도 틀어서 못 팔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섭리 것>이 되게 하셨다.

18. <하나님 사랑 상징 돌>을 살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교회에서도 지도자들이 차원이 낮아 자기를 머리로 삼고 하니, 마치 <돌 주인>이 ‘제일 좋은 작품 돌’을 ‘세 번째 순위’에 놓고 보듯 생명들도 자기 차원대로 본다.” 하셨다.

19. <작품 돌>을 보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세밀하게 형상이 안 생겨서 아쉬워요. 사람 형상대로 여기는 더 크고 여기는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워요.”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려면 네가 대리석을 가져다 네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는 방법밖에 없다. <비유>를 들 때, 실체와 똑같이 그 비유를 드는 것이냐. <핵적인 의미와 뜻> 한 가지만 맞으면,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비유를 들지 않느냐. 어떤 자연석이 ‘만물의 영장, 인간’을 똑같이 닮을 수 있

겠느냐. <나무>도, <돌>도, ‘핵 형상’만 스쳐 보이면 ‘사람 같다. 어떤 동물 같다.’ 하지 않느냐. 보는 지혜를 깨달아라.”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운곽>을 보아라. 그러면 아쉽다고 하지 않는다.” 하셨다. 고로 운곽을 보니, 섬세하게 형상이 닮아 있었다. 하나님께 정말 닮았다고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이 돌이 형성될 때부터 보면서 세밀하게 만들었다.” 하셨다. 고로 그때에도 이미 알고 만드신 신의 경지를 깨달았다.

20. <돌 주인>은 이 돌이 20년이나 안 팔리니, 버린 돌로 취급하고 다른 돌로 방향을 돌려서 장사하고 있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아는 주인’을 만나 ‘모퉁이의 머릿돌, 작품 돌’이 되었다.

21. 교회마다 비바람 맞고 손을 안 대서 때가 끼고, 마음이 변해 가고, 행실이 변해 가는 자가 있나 보아라. <돌 자체>는 자기를 빛내려 못 닦는다. <주인>만 닦는다.

22. 어떤 자에게서 보고가 와서 보니, 귀한 자인데 천히 여김을 받고 있었다. 고로 돌같이 귀히 보고 빛나게 해 줬다.

23. 모두 낙심 말고 자기도, 상대도 돌같이 귀히 보고 씻고 닦아서 ‘작품 생명’으로 만들어라. 모두 이 돌같이 오랫동안 안 다른 데 안 팔리게 하여 ‘주의 눈’에 띄게 하고 섭리사에 오게 한 것이다.

24. 어느 날 누가 보고하기를, 섭리사 신부들의 성격이 거칠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께 고쳐 달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강돌, 조약돌도 있고 형상석, 괴석도 있다. <형상석>이나 <괴석>을 ‘강돌’같이 매끈하게 하려 하면 버린다.” 하셨다. 큰 집에는 각종 물건이 있듯이 섭리사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주 안에서 선(線)을 넘지 말고 개성으로 존재하면, 모두 ‘귀한 개성의 생명’이 된다.

25. <휴거된 인생 작품>이 되면 ‘최고’다. <최고>는 ‘사랑의 하나님의 대상이 된 자’다.

26. <한 돌>에 여러 형상이 있듯이, <자기>도 부지런히 만들어서 ‘여러 특성과 재능’으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라.

27. 10년, 20년씩 씻고 닦아라.

28.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데서 찾아도 없을 때, 그때서야 정말 귀하고도 귀한 것임을 깨닫고 극치로 기뻐하게 된다.

29.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30. <영>이나 <마음과 생각>으로 누리면 ‘천 배’나 더 누리고, <육>으로 누리면 한계가 있으니 ‘한 배’만 누린다.

31. <육>으로 ‘별 세계’에 가겠느냐. <육>으로 ‘영의 천국’에 가겠느냐. <마음과 생각>으로 가고, <혼과 영>으로 가니, ‘영적’으로 누려야 된다.

32. <육적으로 누리는 자>는 지나가다 길가에 열린 딸기를 따 먹고 가는 것과 같고, <영적으로 누리는 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와 같아서 늘 딸기를 따 먹는다.

33. <육적으로 누리는 자>는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도, 상대도 꽃같이 시든다. <영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자>는 사랑할수록 빛이 나고, 기쁘고, 영광이다.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짝의 창조>는 ‘첨단 창조’다.

2. 삼위가 ‘짝’으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심은 ‘더 이상 없는 첨단의 창조’다.

3. <삼위가 짝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첫째, 서로 생명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다. 둘째, 번성을 통해 지구 세계를 계속 창조하기 위해서다. 셋째, 상호 존재하며 서로 대화하고,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넷째, 서로 통하게 하기 위해서다. <짝>이 아니면 차원상, 존재상 안 통해진다. 맞아야 통한다.
4. <모든 전파>도, <물질>도 맞아야 통한다. <짝>은 통한다.
5. <짝>은 '질'과 '내용'이 통한다.
6. <구조상의 짝>이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7. <이성>은 '모양과 형상의 짝, 마음과 생각의 짝'이고, <동성>은 '생각'만 짝이 될 수 있다. 동일한 모양이라고 짝이 아니다. <동성>은 모양이 같다. <이성>은 '모양'은 다른데 '구조'가 맞아서 짝이 된다.
8. 하나님은 '동성의 사랑'을 목적하고 창조하지 않으셨다. <동성 사랑>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다. 하나님은 '이성 사랑'을 창조하셨다.
9. <만물의 이치>로 '짝'을 보아라. <암컷>과 <수컷>이 '짝'이다. 서로 짝이 되어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10. <동성>은 '생명의 역사'를 못 이루고 당세로 끝난다. <조화의 역사>를 못 나타내고, <두 가지 신비와 웅장과 아름다움>을 보이지 못한다.
11.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짝의 창조를 알지 못하고, 신의 세계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동성 세계'에서 산다.
12. 하나님이 '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우주 만물, 각종 존재물들이 존재를 못 한다. 같은 존재끼리는 당기고 밀지를 못한다. <한 가지>만 존재한다. 이는 <같은 극>끼리는 전기를 못 내는 격이다. <수신기>만 '두 개'가 있는 격이다.
13. <그림>도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짝'으로 그리면, 더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고 이상적이다. <개성의 짝>이다.
14. <앞산, 동그래산>과 <기도동산, 청기와집 뒷산>이 '짝'이다. <서쪽 대둔산>과 <동쪽 인대산>이 짝이다. <대둔산>은 '남자'이고 <인대산>은 '여자'다.
15. 잔디밭, 여자 - 운동장, 남자 연회장 폭포, 여자 - 호수 옆 폭포, 남자제1폭포, 여자 - 호수 옆 폭포, 남자성자바위, 남자 - 큰바위얼굴바위, 여자, 이렇게 '짝'이다.
16. 감나무주차장 - 명막골이 '짝'이다.청기와집 - 3.16 휴거기념관이 '짝'이다.석막리로 오는 길 - 앞섭골 길이 '짝'이다.
17. <회골의 성자 만남 술>과 <조은 목사를 만남 술>이 사연으로 '짝'이다.
18. <소를 묶던 소나무 두 그루>도 '짝'이다. <Y자 소나무>와 <옆에 있는 소나무>가 '짝'이다.
19. 자연성전 조경도 <남편>과 <북편>이 '짝'이다.
20. 낙타바위도 <암컷>과 <수컷>이 '짝'이다.
21. <코끼리바위>와 <두꺼비바위>가 '짝'이다.

22. <운동장>과 <연회장>이 ‘짜’이다.
23. 이같이 <짜>은 ‘위대한 조화와 창조’다. <이상적인 창조>다.
24. <작품>도 ‘짜’으로 만들 때 그리 이상적이다.
25. <한 개>는 외롭다. 쓸쓸하다. <두 겹 줄>이어야 된다.
26. <같은 것>은 가다 ‘한계’를 맞고 이상을 못 이룬다.
27. <역사>도 ‘두 세계 짜’이다. <구시대>, <새 시대>다.
28. <두 증인, 두 감람나무>다.
29. 섭리사에도 ‘두 감람나무’를 세웠다. <내적인 자>와 <외적인 자>다.
30. <섭리 전체>는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다.
31. <여자>와 <남자>다.
32. <사람 지체>도 ‘양손, 양다리, 두 눈, 윗입술과 아랫입술, 두 개의 콧구멍, 두 개의 콩팥’ 등이 짜이다. <핵 과일>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모두 ‘짜’으로 창조하여 기능을 하게 하셨다. 이는 ‘이상적인 기능과 조화의 역사, 주고받는 생명의 역사’다.
33. <지구>는 ‘자전’과 ‘공전’이 짜이다. 또 <지구>는 ‘달’과 짜이다.
34. <신앙 세계>도 그러하다. <육체, 혼체, 영체>가 다 ‘짜’이다. 기능이 다르고, 존재도 다르다.
35. <짜>이 하나 될 때, 그리 이상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나 되지 않은 자>에게는 평생 ‘이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모른다.
36. <짜의 역사>는 ‘무한한 표적의 역사’다.
37. <삼위>와 <그 대상, 인간>은 ‘사랑의 짜’이다.
38. <할 수 있는 일>도 모르면 못 하고, 잊으면 못 한다.
39. 배워라. 생각날 때 해라.
40. <하나님이 창조하신 짜>끼리 길렀더니, 번창하여 무한한 역사를 이뤘다.
41. <짜>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고, 섬겨 주고, 도와주어라. <자기 몸>이니 먹이고, 입히며 ‘관리’를 생명시해야 된다.
42. <짜의 존재>는 남녀 둘이 하나 되어 생명을 탄생시키듯 ‘탄생과 창조’를 무한히 시킬 수 있다. <내적 창조>와 <외적 창조>다.
4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근본 존재자’로서 ‘주체’이다. 상대체인 인간이 삼위와 일체 되어 하면, 무한히 창조해 낸다. <신적 창조>를 하게 된다.

44. <육의 세상>은 ‘보이는 짝’이다.

45.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짝’으로 창조하셨다. 자세히 보아라.

46. <짝의 역사>는 ‘능력의 역사’다.

47. <자기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짝’으로 안 삼고, <자기를 구원한 자>를 ‘짝’으로 안 삼고, <우상과 악과 비정상인 것들>을 ‘짝’으로 삼고 그것과 하나 된 자들을 모두 보아라. 결국 다 망했다. <나머지>도 ‘그 날’이 바로 닥친다. <치타>가 다른 짐승을 잡으러 출발하고 사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 잠깐의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한때만 남아 있다. 이때가 순간 돌이키라는 ‘기회’다.

48. <자기 짝>을 버리고, ‘다른 자’를 좇아 짝으로 삼는 자도 모두 그 날이 닥친다. <우상의 짝들, 물질의 짝들, 명예의 짝들, 예술의 짝들, 동성의 짝들, 비원리적 사랑의 짝들, 세상 사랑의 짝들> 모두를 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보다 더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손해인지 모른다. 홀연히 그 날이 온다.

49. 섭리사에서도 젊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가까이하지 않고, 자기를 전도한 자와만 가까이하면, 결국 그로 인해 신앙이 다 무너진다. 삼위를 짝으로 삼고, 자기 영을 위해 산 자들은 휴거되어 그 영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사는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애를 태우며 지상에서 다닌다.

50. <영적인 짝>, <육적인 짝>을 제대로 찾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뛰고 달려라.

51. <내적인 자>와 <외적인 자>가 일체 되어 뛰어라. 그래야 지구와 달이 존재하듯 한다.

52. <삼위>와 <우리>는 ‘영’도 ‘육’도 짝이다. 알고 행하여라.

<2018년 4월 3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의 축복>을 받아라.

2. 누구에게나 시간은 ‘하루 24시간’이다. <시간의 축복>이다. 그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다.

3. <시간>은 ‘할 일’이 있어야 쓴다.

4. <할 일>도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

5. 시간을 가치 있게 쓸 것이 있어야 된다.

6. <할 일을 주는 것>이 ‘시간의 축복’이다.

7. <할 일>이 없으면, 허송세월이다. 세월이 헛되게 금방 간다.

8. 감옥이든, 어디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많으면, 시간이 그렇게도 빨리 간다. <육적인 일>, <영적인 일>이다.

9. <할 일이 없는 자>는 시간이 지겹게 간다. 허송세월이다.

10. 누구든지, 어디든지 ‘할 일’이 많으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

11. <시간>은 ‘생각’에 따라 빠르게도 가고, 느리게도 간다.

12. <일하는 자>는 ‘시간을 잡는 자’다.

13.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지겹게도 가고, 어느 때는 무의식중에 시간이 금방 가 버리기도 한다.

14. <할 일>이 많으니,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일반 사람보다 새벽 시간을 4시간씩 더 써도 부족하다. 매일 낮 시간도 그리 쓰니, 하루에 32시간을 쓰는 셈이 된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같이 시간을 쓰고 사는 것이 인생 오래 사는 방법이다.

15. 그저 나이만 많이 먹고 할 일도 없이 운동이나 하고 병원이나 다니고 먹고 즐기면서 사니,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고 200살을 산다고 해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육>은 ‘무(無)’로 끝난다.

16. 100살이 넘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숨만 쉬면서 잠이나 자고, 먹고, 겨우 자기 생활만 하며 사는데 그렇게 오래 살아서 뭐하느냐.<자기 육>을 가지고 미래 ‘영’을 위해 쓰고, ‘영과 혼이 구원받아 사는 데’ 쓰면, 육이 오래 살아도 보람이다. 그런 자는 100살이 넘어서 겨우 거동하며 살아도 미래 ‘영’이 다 받으니 오래 사는 보람이 있다.

17. <젊은 자들>도 아무리 이성 사랑을 다 누리며 즐겨도, 당세만 누리고 끝나니 아무것도 아니다. <육의 삶>을 살면서 ‘영’도 변화시키고 살아야 육신이 죽어도 ‘변화된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사니, 그 삶이 가치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다.

18. <육>만 가지고 살면,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광은 기억도 안 난다. 매일 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고 돼지를 10마리씩 먹고 살았어도 육신이 죽으면 기억도 안 나는 격이다. <육신>이 살면서 ‘영’을 살리지 못하면, <영>이 얻은 것이 없으니 끝난다.

19. <육>을 가지고 ‘영’을 살리는 데 쓰는 자는 자기가 수고하고 투자한 것이 성공해서 육으로도 평생 보고 누리고, 영으로도 영원히 쓰고 누리는 자와 같다. 만일 육만 위해 살고 ‘영을 살리는 데’ 성공을 못 하면, 수고하고 투자했어도 남는 것이 없으니 무(無)로 끝나는 것이다.

20. <영>을 위해 투자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미래에 무(無)로 끝나니, 육신이 산 것이 ‘헛삶’이 된다. 짐승같이 육으로만 살다 끝나고, 그 후에는 짐승의 삶보다도 못한 ‘영의 고통’이 시작된다. 완전히 저주의 삶이 된다. <육>으로도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도 이것을 모른다. 제대로 알면,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세상 사랑도, 희락도, 노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육을 가지고 ‘영’을 위해 살 것이다.

21. 육신 일생 금방 간다.

22. 100세까지 살아도, 백만 시간도 안 된다.

23. 사람들은 인생 죽기 전에 즐기자고 하며 먹고, 놀고, 자고, 쾌락을 즐기며 산다. 이는 ‘영’만 더 사망으로 가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서 주와 같이 먹고 즐겨라. 그러면 육도 영도 더 잘되고 기뻐하게 된다.

24. 하나님과 같이 행하면 육도 영도 더 잘되고 기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빼고 등을 돌리고 하니 인생 ‘육’에서 끝난다. 그러니 <영>이 ‘크고 넓고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가게 된다.

25. <자기 영의 구원>도 못 시키고 사는 세상 행복은 행복도 아니다. 혼자만 즐기는 삶이다. 혼자 즐기며 광야에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크냐. <짝>을 찾아서 ‘상대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고, ‘영원한 사랑, 신적 사랑’을 받으며 <육>도 일생 행복하고 <영>도 영원히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26. 나그네가 주막에 들러 순간 술이나 한 잔 먹고 행복해하다가 떠나는 것은 ‘일회성 행복, 소모품 같은 행복’이다.
27. 가령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하루만 같이 사랑하고 영원히 헤어진다면, 그것이 행복한 사랑의 삶이겠느냐. <인생>도 ‘하루’와 같이 육으로만 살다 끝나면 그와 같다. 하루만이 아니라 평생 기뻐 즐거워하며 살고, 영원히 사랑하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보낸 자를 사랑하고 믿고 행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하루 같은 육적인 삶만 누리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즐기며 살아도 부러워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이 아이큐 120~140에서 육으로만 느끼면서 즐기는 것과 같이 보고, 어린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꽃놀이하는 것같이 본다.
28. 성장하여 육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즐겨야 100배, 1000배 느끼며 기쁨을 누린다.
29. <육>에 처해 즐기면, 겨울 추위에 화롯불에서 즐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 속해 영>으로 즐기면, 여름 더위에 물에서 즐기는 것과 같다. 이같이 아예 다르다.
30.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느끼고 즐기면 ‘세상’을 다 다니면서 보고 듣고 먹고 즐기는 것과 같고, <육>으로 즐기면 ‘자기 집’에서 혼자 즐기는 것과 같다.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고도 그 주권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 육으로만 즐기고 사는 삶’은 조금 주셨다.
2. 자기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으로 기쁨을 얻고, 즐기고 사랑하며 산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천지 만물이 웅장한 만큼, 또 영의 세계가 엄청난 만큼 즐기며 살게 하셨다.
3. 월명동도 내 생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니 최고로 만든다고 하면서 시멘트로 ‘축구장 관중석’같이 만들려고 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도 ‘육의 생각’으로 그같이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쓰고 너도 쓰려면 내 생각, 내 구상대로 만들자. 지금같이 시멘트로 만들면 보기 싫어. 평생 어떻게 보느냐. 평생 봐도 기쁘고, 또 육이 죽고 영이 봐도 기뻐하게 만들자. 내 여기에 맞게 최고로 만들게 구상을 주마.” 하시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 주셨다. 그 때는 지금같이 안 만들어 놓은 때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보여 주셨다. 신비하고, 오묘했다. 내 마음도 생각도 영도 기절하였다. 그 기쁨은 육으로 느끼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컸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상대로 20년 이상 걸쳐 만들었다. 만들어 놓으면, 천 배나 더 기쁘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느끼는 것>은 ‘육으로만 느끼는 것’과 이같이 다르다.
4. <육이 느끼고 즐기는 것>은 아이큐 120~140의 생각에서 느낀다. <영>으로 느끼고 보면 ‘육의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더 보고 느끼니, 아이큐 12000~14000의 생각으로 보고 느낀다.
5. <육적>으로 살면, ‘생각의 그릇’이 안 되니 아예 보여 주지도 않으신다. <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영으로 본 것>을 ‘육’을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엄청나다.
6. <월명동>은 20년 이상 걸쳐 ‘하나님이 영으로 보이신 것’을 그대로 만들었다. 고로, 볼 때마다 그리 기뻐한다. 세계 최고의 미인과 사는 격이다. <환경의 미인>이다.
7. <월명동>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100% 만들었다. 고로 볼 때마다 만족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같이 만드셨으니 늘 함께 기뻐하신다. 삼위도 함께 기뻐하시니, ‘자기 생각으로 한 것’보다 천 배나 더 기쁨과 흥분을 느낀다. 늘 사연을 이야기한다.
8. 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면, 자기 구상으로 할 때보다 백 배는 더 기뻐한다.
9. <신앙>도 그러하다. <성경>도 제 생각대로 풀고 사니, 이뤄지지도 않는 데서 늘 소망하며 소망의 찬양만 하고 이뤄지길 기다린다. 일반 새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나오겠느냐. 토끼를 정성으로 기른다고 빠른 치타가 되겠느냐. <육>은

‘육의 한계’에서 누리고 끝난다.

10. 지구 세상을 다니면서 보고 즐겨도, 아이큐 120~140의 생각 차원에서 보고 느끼고 좋아한다. <육의 한계선>까지 다.

11. <육으로 보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일체 되어 사는 자들’이 방 안에서 보지도 않고 생각으로만 즐기는 것만도 못하다. <세상>이라는 여자를 껴안고 사랑하며 기뻐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즐기면 ‘그림의 떡’을 보고 즐기는 정도다. 이는 <영>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같이 육도 영도 즐기는 삶의 백 분의 일도 안 된다.

12. <육>으로 실체를 보며 느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기며 사는 삶’을 못 따라간다. 세상 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13. <영>을 구원하여 이 시대 최고 급으로 즐기며 살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살며 즐겨라. 그러지 않으면, 초등학생이 자기 짝을 만나 사랑하며 즐기는 정도와 같다. 그러니 <삼위와 주와 사랑하며 사는 자들>은 그 사랑이 ‘소꿉장난 사랑’임을 뻔히 안다.

14. <육으로만 보고 느끼며 사는 삶>은 시골 장터에서 농사지은 곡식들, 채소들을 팔고 돈을 얻어서 기쁨을 누리는 정도다. <시대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삶>은 큰 사업을 해서 큰돈을 벌고, 재벌이 되는 기쁨과 같다.

15. 하나님은 <최고 시대 역사에 참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상대급 기쁨’을 주신다.

16. 석막리에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육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교회 하나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자기 생활의 터전을 가지고 기쁨을 누렸다. 선생은 시대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니, 하나님은 수백 개의 교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같이 지어서 관리하며 살게 하셨다. 그 기쁨이 천 배, 만 배는 더 크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차원이 다르다.

17. 하나님이 그 시대, 그때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과 같이 그 일을 하니, 그 기쁨도 같이 느끼고 산다.

18. <예수님 때>도 숫자는 적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같이 한 자들이 천 배, 만 배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 결국 이들로 신약 세계를 이뤘다.

19. <구시대>는 ‘종급 사랑’이나 ‘자녀급 사랑’만 주시고, <이 시대>는 한 차원 높은 신부 시대로 ‘신부급 사랑’을 주신다.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그러하다. <육>이 행할 때 ‘영’도 같이 크면서 변화되기 때문이다.

20. 항상 시대를 알고 따르는 자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며 간다.

21.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아라. 주와 함께 해라.

22. 세상 모든 이치를 보아라. 모래 속에는 큰 돌이 없다. 다 ‘모래’다. 돌이 있는 지역에 가면, 거기는 다 ‘돌’이다. 나무 묘목 농장에 가면, 거기는 다 ‘묘목’만 있다. 정원수를 파는 데 가야 아름답리나무를 판다.<종교 세계>도 하나님은 이같이 정하시고 뜻을 펴셨다. <기성>에는 ‘기성 세계의 것’만 있다. 고로 그 세계의 것만 주신다. <새로운 세계>에 가야 ‘새로운 것’을 주신다.

23. <양계장>에 가면, ‘계란’과 ‘병아리’와 ‘크는 닭’과 ‘다 큰 닭’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차원이 다 다르다. 큰 닭을 보려면, 큰 닭이 있는 데 가야 된다. 좋은 것을 사다 먹으려고 갔어도 큰 닭이 있는 것을 모르니, 계란만 사다 먹고 병아리같이 작은 닭만 사다 먹는다.

24. <최고>는 ‘최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시대>도 ‘하나님의 최고 것’은 따로 있다. <보낸 자>가 가지고 있다.

25. <이 시대 하나님의 최고 역사>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시대’에 맞춰 역사하신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보낸 자’

가 하나님과 함께 편다. 고로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 ‘최고 뜻’을 펴신다. <이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다 큰 닭’을 잡아먹고 즐기니, ‘계란, 혹은 병아리, 혹은 작은 닭’이 뭔지 안다. <큰 닭이 있는지 모르는 자들>은 ‘언제 큰 닭이 되지?’ 하며 기다린다. 닭 주인이 큰 닭을 차에 싣고 나가다가 ‘닭을 사러 온 자들’에게 이 차에 있는 닭을 사 가라고 하니, 외면하고 농장으로 들어간다. 가서 보니, 주인이 관리하는 큰 닭은 이미 없었다. 그러니 계란이나 병아리만 사 가서 먹고 즐긴다. 모르는 자만 억울하다. 시대를 모르면, 영원히 억울하다.

26. 아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왜 알려 줘도 안 하느냐. 행해야 얻는다. 오늘도 삼위는 최고로 차원 높은 시대 역사를 펴시니, 시간마다 때를 따라 행하여라.

27. 열매를 안 여는 나무인데, 열매를 맺겠느냐. 그런 나무는 지구를 다 뒤져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오직 보낸 자에게만 ‘이 시대 열매’를 맺는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 가르치고 행하게 하시어 ‘휴거 열매’를 맺게 하신다.

28. 가인들을 보아라. 아벨 역사를 막고, 미워하고, 살인하니,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한다. 예정된 그 날이 온다. 하나님께 가는 생명들을 구원 못 시키게 한 죄다.

29. <가인들의 삶>은 ‘병아리 삶’이다. 100년을 키워도 병아리다.

30. 하나님은 <육적인 삶,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병아리 축복’만 주신다.

31. <시간의 축복>은 ‘그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똑같이 24시간을 다 주신다. 어떤 일을 하느냐다.

32. <육의 삶>도 최고로 하고, 그로 인해 <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키우는 것이다. 큰 만큼, 사랑의 대상이 된 만큼 받고 영원히 누린다.

33.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최고 것’을 해라. 최고 것을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받아 주신다. 고로 해라.

34. 최고로 행하니, 거기에 맞게 받았다. <육의 것>도, <영의 것>도 주신다.

35. <주>는 ‘머리’이고, <너희>는 ‘지체’다. <지체>가 행해야 된다. <머리>는 ‘생각’을 하고 지체에게 전달한다. <머리의 생각>을 받아 행하는 지체들은 ‘때’에 맞춰 행해야 된다. <때>에 맞춰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36. <주 머리>다. <자기 머리>는 ‘육 머리’다. 고로 그 머리로는 허송세월이다. 행할 것이 없으면, 시간이 있어도 허송세월이다. <머리>는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 이는 자기가 행해야 느끼고 안다. 행해야 느끼고 보고 알게 된다.

37. 삼위와 주와 같이 행해라. 하나하나 교정하듯, 꼭 하나하나 살피고 확인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보아라. 뜻도 아닌데 하고서 축복을 기다리는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할 때 잘하여라.

38.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39. <죄>를 지으면 뺏긴다.

40. <아벨의 삶, 장자권의 삶>이다. 그래야 그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다 받으신다.

41. 짧은 시간이라도 결심하고 성령과 주와 하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곡식들>도 각종 종자가 있듯이 사람도 각각 그러하다. <좋은 종자>를 선택해야 '좋은 사람'을 만든다.
2. <나쁜 종자>도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듯 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는 평생 좋은 열매가 안 열린다.
3. <주의 생각으로 바꾸고 사는 자>는 마치 돌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를 접붙이듯 주와 접붙인 자다.
4. <섭리사에 왔어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는 돌포도나무를 캐다 '섭리사'라는 포도원에 심기는 했으나, 아직 참포도나무와 접붙이지 않았기에 '돌포도나무'와 같다.
5. <시대 말씀>을 듣고 '옛것'을 잘라 버리고, '새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새 시대에 접붙인 자'다.
6. <역사>도 '접붙이는 역사'다. <신약> 때는 '옛 시대 구약'을 자르고 '신약'을 접붙여야 '새 시대 신약역사에 접붙인 자'였다. <성약> 때는 '신약'을 자르고 '새 역사 성약역사'를 접붙여야 '새 시대 성약역사에 접붙인 자'다.
7. <개인>도 '자기 모순, 불의한 것들'을 자르고 '온전한 것'을 접붙이기가.
8. <말씀>도 '구시대 것'을 다 잘라 버리고, '하나님이 새 역사에 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접붙이기가.
9. 참포도나무와 접붙이지 않은 돌포도나무에서는 열매가 열리지 않듯, <사람>도 '하나님의 새 역사'와 '주'와 접붙이지 않은 자는 '휴거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육>도 <영>도 그러하다.
10. 자기를 중심하는 생각을 안 버리면, 그 생각이 계속 뇌에서 작용하여 10년, 20년, 혹은 평생 그 생각대로 행해진다.
11.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행하게 된다.
12. <생각>도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있다. <영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주께 속한 생각'이다. <육적인 생각>은 자기 생각이며, '땅에 속한 생각'이다.
13. 사람은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희박해져서 안 해진다. 그러다 아예 포기한다.
14. 사람은 <목적>과 <희망>으로 행하게 된다. 단, '자기 목적과 희망'은 깨져야 된다. <자기 목적과 희망>은 이뤄졌어도 '육에 속한 것'이라 허무하고 별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 <하늘에 속한 목적과 희망>을 품고 해야 된다. 그래야 육 평생, 영 영원까지 간다.
16. <하늘에 속한 목적과 희망>을 두고 행하되, 될 때까지 자꾸 반복하여 행하여라. 그 단계를 거쳐 가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못 간다.
17. <역사>도 '구(舊)역사'가 못 오르면, 다음에 오는 '새 역사'가 기준을 세워서 오르고 역사를 펴 나간다.
18. <구역사>는 '구역사'까지밖에 역사를 펴지 못한다. <새 역사>가 와야 그에 해당되는 기준을 세워서 오르고 역사를 펴 나간다.
19. 보아라. 지난날 <구약역사>에서는 '구약'까지 역사를 펴고 끝났고, <신약역사>에서는 '신약'까지 역사를 펴고 끝났다. <새 시대 성약역사>가 오면, 새 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 역사'를 펴 간다. 이는 <오늘>에서는 '내일 역사'를 못 펴

고, 내일이 와서 '내일의 해'가 떠야 '내일 역사'를 펴는 것과 같다.

20. <봄>에는 '여름 역사'를 맞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한다. <여름>에는 '가을 역사'를 맞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한다. 희망을 가질 뿐이다. <구약>은 '봄'과 같고, <신약>은 '여름'과 같고, <성약>은 '가을'과 같다. 지금은 '가을 역사'를 펴면서 열매들이 익는 대로 따고 있다.

21. <역사>는 자기 생각대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인식일 뿐이다.

22. <하나님이 정한 때>는 지구가 돌듯이 오고 간다. 자기가 급하다고 빨리 오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는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제때'에 온다.

23.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100년, 1000년을 기다렸어도 안 왔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온다. 때가 됐어도 '구시대에서 기다리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다. <새 역사>이니, '새 시대, 새 역사'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가르치고 보내신다.

24. 만일 구시대 기성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온다면, 그 모습 그대로 구시대 역사에 왔어야 했다.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다. 하나님은 '새 시대'에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통해 '새 역사'를 펴셨다. 새 시대에 와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이것을 알고 역사를 펴 간다. 누가 그것이 아니라고 고집 부려도, 아는 자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일을 하며 간다. <길을 찾은 자>는 '찾은 길'을 가는 것이다. 길도 못 찾고 자기 길도 제대로 못 가면서 고집만 부리는 자와 다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 시대가 그러하니라. 길이 아닌데 희망을 품고 힘들게 간다. 그러나 그 길로는 자기가 희망한 목적지가 안 나온다. <구시대>가 그러했다. 희망을 품고 갔으나, 결국 끝났다. <새 시대, 새 역사의 길>은 '천 년'이나 남았다. 당세 역사를 펴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 역사를 펴 간다.

25. 하나님은 '새 역사를 알고, 새 역사의 길을 가는 자들'과 함께 역사를 펴시며, 그들과 매일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

<2018년 5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지구 세상의 각 족속대로 역사를 펴 가신다. 저기서 못 하면, 여기서 정녕코 다 하신다. <섭리역사>에서도 그러하다. 그 교회에서 못 하면 다른 교회에서 기어이 하고, 개인도 이 사람이 못 하면 다른 사람이 기어이 다 한다. 자기가 못 하면 자기에게 손해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다른 자를 통해서 다 하신다.

2. <개인>이 못 했어도, '지구'는 변함없이 돌아간다.

3. <밥>이 모자라면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가듯이, 이 사람이 못 하면, 그가 못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하고 간다. <주인>만 안다.

4. <섭리사 교회>도 지방에서 사려고 했던 건물을 못 사게 되니, 그보다 10배나 나은 교회가 큰 도시에 나서 그 돈으로 '큰 도시의 교회'를 사게 됐다. 섭리사는 모두 한 지체이니, 왼손으로 안 된 것은 오른손으로 하게 하여 같이 먹고 쓰게 한다. 하나님은 이같이 섭리하신다.

5. <역사>도 '구시대에서 못 한 것'을 '새 시대'에서 하여 이루고 간다.

6. <부모>가 큰 아이에게 시켰는데 안 하니, 작은 아이에게 시켜 '가정에서 할 일'을 하게 하듯, 이같이 하나님도 '할 일'을 반드시 다 이루고 가신다.

7. 하나님은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못 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후자를 세워서 그가 하게 하시어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정녕코 행하신다. 본인이 안 하면, '영원한 영광의 자리'는 합당하게 행한 자가 그 공적대로 받는다.

8.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모든 꿈도 깨지고, 그때부터 '광야 길, 사막 길'을 거쳐 '흑암과 사망의 세계'로 가게 된다.

거기서 이를 갖고 슬피 울며 영혼이 영원히 살게 된다.

9. <섭리사 교회>도 처음에 원했던 것을 못 사게 되니, 후에 ‘더 좋은 것’이 나와서 그 건물을 사게 됐다. 이같이 ‘생명들’도 그러하다.

10. <월명동에 심으려고 희망했던 나무>를 캐러 갔는데, 그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 있었다. 고로 아까워하며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그 옆에 수형도 좋고 크기도 더 크고 좋은 희귀종 ‘가부리 홍송’이 있었다. 여호와 이레였다. 하나님은 이 ‘가부리 홍송’을 캐 오게 하셨다. 지금은 키워서 거목이 되었다. 운동장 동북편의 병풍 작품 중간에서 크고 있다. 좋은 위치에 가면 ‘작품’이 된다. 이 나무는 동북편 돌 조경에서 제일 눈에 띈다. 이 <가부리 홍송>은 ‘아름다울 가(佳)’자를 쓰고 ‘독수리의 부리’같이 휘어졌다고 해서 ‘가부리’라고 칭한다. 이같이 하나님도 주도 기대에 어긋나면, 다른 것으로 쓰신다.

11. 앞산 야심작을 쌓을 때다. 한번은 야심작이 무너지면서 돌이 깨져서 ‘깨진 돌을 대신해서 쌓을 돌’을 구하러 돌을 파는 회사에 갔다. 그 전에 그곳에 갔을 때 크고 좋은 돌이 있었는데, 주인이 그 돌은 자기가 골라 놓은 ‘자연석 작품 돌’이라고 하면서 안 판다고 했다. 그때는 값도 아예 비싸게 말해서 살 생각을 못 하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느니, 그 돈 주고 다른 돌을 많이 사다 쌓자.’ 했었다. 그러다 야심작이 무너지면서 돌이 깨져서 ‘깨진 돌을 대신해서 세울 돌들’을 구하려고 다시 그곳에 갔는데, 주인이 ‘전에 안 판다고 했던 돌’을 판다고 했다. 그때는 돌이 귀한 때여서, 일반 돌보다 가격을 조금 더 주고 사 왔다. 하나님과 성자가 주인에게 감동을 주며 팔게 하시고, ‘때’를 맞춰 사게 하셨다.

12. 이 바위는 야심작 한가운데 있다. 크고 무거운 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갔다. 기적적으로 쌓았다. 큰 돌을 높은 곳까지 올려야 하니, 먼저 돌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간신히 크레인으로 돌을 들어서 붐대를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돌을 놓을 위치까지 갔다. 바위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 돌을 올렸던 크레인의 붐대가 휘어질 정도였다. 간신히 크레인으로 그 위치까지 올렸는데, 돌이 들어갈 구멍과 방향이 안 맞아서 돌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돌이 들어갈 구멍에 맞추기 위해 10명이 달라붙어서 돌을 잡고 돌렸다. 그래도 힘이 모자라서 돌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그때 선생은 전체를 살피면서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너도 들어가서 밀어라.” 하시어 나도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돌을 잡고 돌렸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부르면서 돌렸다. 그러니 틀어졌던 돌의 방향이 조금씩 제대로 돌아왔다. 돌이 구멍에 맞게 제대로 돌아왔는데, 그 순간 크레인의 뒤가 들리면서 매달려 있던 돌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순간 좌우에 있던 큰 돌이 밀리면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돌이 구멍으로 쑥 들어갔다. 굉음이 나고, 좌우에 있던 돌에 스치면서 번개 치듯 불꽃이 났다. 돌이 제 위치로 들어간 것이다. 모두 돌이 제대로 들어갔다고 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돌이 틀어졌을 때 성령님은 “너도 같이 들어가서 밀어라.” 하고 감동을 주시고, 내 몸을 통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같이 밀어 넣게 하셨다. 고로 돌이 들어갈 자리를 맞추게 하시고, 그 순간 크레인이 방아 찰듯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돌이 제 위치로 쑥 들어가게 하신 것이다. 만일 돌이 들어갈 구멍에 못 맞췄을 때 크레인이 고꾸라졌으면, 야심작 절벽에서 30톤이 넘는 바위가 넘어지면서 대형 사고가 났을 것이다. 혹은 돌이 들어갈 구멍과 방향이 맞아서 세웠어도, 그냥은 그 구멍으로 안 들어갔을 것이다. 돌이 구멍과 방향이 맞은 그 순간 크레인이 방아 찰듯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돌이 위에서 떨어져서 그 자리로 쑥 들어간 것이다. 마치 남녀가 사랑으로 일체 되듯, 삼위와 신부들이 사랑으로 일체 되듯 했다.

13. 이런 사연을 거치면서 야심작을 쌓았다. 특별한 돌들은 다 사연이 있다.

14. 이 바위를 세울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 바위는 나 여호와가 편안히 앉는 의자 형상을 상징한 바위다.” 하셨다. 야심작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으로 구상하고 만들었기에, 편안해야 된다. 이 바위는 ‘자연석’으로, 짐승이나 사람 형상은 없어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바위다. 고로 이 바위는 ‘편안한 하나님의 보좌 형상’을 상징한다. 그 주변도 모두 편안하게 앉는 자리로 돌들을 쌓았다. 특히 이 돌과 그 위에 있는 호피석을 중심으로 큰 돌들이 많다. 그리고 야심작 뒤쪽은 ‘의자의 등받이’같이 쌓아야 하니, 돌들을 세워서 쌓았다.

15. 만일 주인이 그 돌을 일찍 팔았다면, 야심작 중간에 못 쌓고 밑에다 쌓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때를 맞춰 사게 하시고, ‘보좌의 앉는 부분’인 야심작 중간에 이 돌을 쌓게 하셨다. 이 바위는 야심작을 앞에서 봤을 때 우측에 보이는 검은색의 큰 바위다. 이 바위는 가로로 쌓아 놓아서 작게 보이니, 실상 큰 바위다. 마치 호박씨를 거꾸로 세워 놓은 것같

이 두툼하고 납작하게 생겼다. 옆에는 소나무도 심어 놓아서 표가 난다. 이 돌은 깊이가 1m 정도 박혔다. 모두 이 돌 같이 제 위치에 자기 사명으로 박혀야 되고, 하나님과 주 품에 박혀서 살아야 된다.

16. 야심작에는 큰 돌들을 많이 쌓았는데, 특히 높이 쌓은 돌들 중에서는 이 돌이 제일 크다. 33톤 정도 된다. 33톤이면 승용차 33대의 무게를 합친 정도다. 또 60kg 되는 사람 550명 정도의 무게다.

17. <성자바위>는 승용차 130대 무게다. 몸무게가 60kg 되는 사람 2100명 정도의 무게다. 얼마나 무거운지 짐작이 가느냐.

18. <월명동에서 최고 무거운 바위>는 153톤 정도 된다. 승용차로 153대, 60kg 되는 사람 2500명 정도의 무게다. 깨닫고 보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옮기는 데 얼마나 힘든지도 안다.

<2018년 5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어떤 돌은 무게가 50톤 정도였는데, 옮기기가 아주 힘들었다. 모양이 바다의 가오리같이 생긴 돌이나 금붕어같이 넓적하게 생긴 돌들이 그러하다.도로 폭은 3m인데 돌의 넓이가 4m이면, 돌을 실은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게 된다. 고로 이런 돌은 차가 안 달릴 때만 옮길 수가 있어서 밤중에 옮긴다. 고로 오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 <안 해 본 사람>은 모른다.

2. <신앙>도 저마다 과거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 왔다. 그러니 그동안 자기가 쌓아 온 신앙을 귀히 생각하고 끝까지 행해야 된다.

3. 이때 ‘그동안 쌓아 온 자기 신앙’을 뺏기지 마라. 자기 청춘을 투자해 가면서 이룬 신앙이다. 영원히 누릴 것들이다.

4. 야심작 우측에는 기념비로 ‘손가락 돌’을 놓았다. 실상은 ‘생명나무 돌’이다. 꿈에서 돌을 파는 회사에 이 돌이 있는 것을 보고, 이후에 육신이 사방 천지를 돌아다녀서 찾았다. 그런데 주인이 다른 돌은 다 팔아도 이 돌은 안 판다고 했다. 고로 다른 돌만 사서 월명동에 싣고 오는데, 그때 주인이 월명동을 보고 이 돌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다. 거의 거저 주다시피 했다. 이 돌은 엄지손가락을 세워 둔 형상, ‘최고’의 형상으로도 보인다.

5. <야심작 현판석>은 ‘똑같은 형상 두 개를 한 쌍’으로 세우려니 찾고 찾아도 없었다. 그러다 한 개를 두 개로 쪼개 놓은 돌을 찾아서 그것을 사다 세웠다. 똑같은 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로 두 개를 ‘한 쌍’으로 세웠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사연 글’이 새겨져 있다.

6. <월명동 돌들>에는 하나하나 모두 사연이 있다. 크거나 작거나 모두 뜻이 있고 사연이 깊다. 이제는 돌들이 귀하니 보는 자들도 “엄청나다. 귀한 보화다.” 한다. 때가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듯이 월명동 돌들도 그 값이 더 오르고 귀해진다.

7. <자연성전>은 천 년 동안 가도록 ‘돌’로 지어 건축했다. 시멘트는 100년만 가도 무너지나 돌은 천 년, 만 년이 가도 그대로다. 시간이 갈수록 비바람에 닳아 매끈해지고 더 빛이 난다. 이제 때마다 청소하고 관리만 하면 된다.

8. <나무>도 천 년 동안 가는 ‘소나무’를 심었으니, 갈수록 성장하여 <휴거술>처럼 되고, <국가에서 보호하는 천연기념물 소나무>같이 커져서 거목이 된다.

9. 당세에 모두 거목을 보고 쓰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큰 아름드리나무도 심게 하셨다. <큰 나무를 심을 때>는 작은 나무를 심을 때보다 10배, 20배 더 힘들었다. 특히 돌 사이에 심을 때는 더 어려웠다. 야심작 뒤쪽에 심을 때는 절벽이라 위험하니 더 조심하며 심어야 했다. 돌 사이에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바위 바닥으로 들어가서 뺨고 커야 되니, 흙에서 자라는 것보다 빨리 안 크다. 그 대신 강하게 성장한다. 이제는 ‘대둔산 바위 절벽에 자란 소나무’같이 큰 소나무가 되어 ‘대결작’이 되었다.

10. <바위틈에 자란 대둔산 소나무>를 보듯 ‘월명동 바위 절경에서 자란 소나무들’을 보아라. 바위 절경에 소나무가 자라게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성자와 함께 만들게 하셨다.

11. <신앙>도 ‘바위 같은 진리’에다, ‘소나무 같은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은혜’다. 여기에 각자 ‘바위틈에 심은 꽃’ 같이 ‘자기 사랑의 꽃’을 심고 피워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된다.

12. 영산홍, 진달래, 철쭉, 장미 등 각종 꽃을 피우듯, 각자 ‘개성의 사랑의 꽃’을 삼위일체와 주를 향해 피워야 된다. <사랑의 꽃>을 안 피우면, 꽃 없는 정원과 같다.

13. <월명동의 큰 돌>을 쌓을 때는 힘들기도 하고, 돌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이같이 <진리의 말씀>도 구하기 위해 힘들게 행했다. 고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절대 행하여라. 그러면 자기 신앙이라는 정원에 큰 바위를 세운 것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14. <영적인 말씀>은 ‘신비한 형상석’과 같다. 고로 자기가 ‘영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자기 정원에 좋은 형상석을 쌓아 놓은 것같이 웅장하고 신비하다. 말씀을 전해 주면, 세 번, 일곱 번씩 읽고 행하여라.

15. 성자바위, 큰바위얼굴바위, 코끼리바위, 밥상바위, 낙타바위, 생명나무 형상석 등 각종 사연을 알고 받아들이면, 자기 신앙이라는 정원에 그런 돌들을 놓은 것과 같다. 영계에서 보니 그러했다. 영계에서 어떤 자의 정원을 보니 폭포수도 없고 소나무도 없었다. 사연도 모르고, 겉으로만 봐서 그러했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성자와 성령과 함께 만든 사연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만 자기 정원에 그같이 웅장하고 신비한 돌들과 나무들이 있었다.

16.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집을 꾸며 냈는데 이를 신부가 몰라주면 신랑과 멀어진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도 없고, 주가 한 일을 몰라주면 안 된다. 하나님도 주도 그가 하는 일을 알아주고 좋아하는 자와 같이 쓰며 살아 주신다.

17. 삼위와 주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미 준 것을 깨닫고 써라.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5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전>은 ‘하나님과 주의 몸’을 상징한다. 깨닫고 써야 하나님도 주도 귀히 본다.

2. <주의 몸>도, <주의 생각>도 귀히 보지 않는 자는 그의 마음에도, 영의 집에도 볼 만한 것이 없다. 자기가 귀히 보는 만큼 귀한 것을 갖다 놓게 된다.

3. <황금성 천국>에도 가 보면, 저마다의 집이 생긴 것도 다르고 안을 꾸며 놓은 것도 다르다. 모두 공적에 따라 다르고, 삼위와 주를 얼마나 귀히 보고 대하고 살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져 있다.

4. <만든 자의 수고와 정성>을 알아줄 때, 그와 함께 기쁨을 즐긴다.

5. 한번은 어떤 지역에서 교회를 옮겨야 됐는데, 교회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이 났다고 하며 선생에게 보고 편지를 보내왔다. 일반 건물이지만 안에는 인테리어가 정말 잘되어 있다고 했다. 선생도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이야기하길, 이곳은 일반 건물인데 안은 교회 같다고 하며 교회로 쓰기에 좋다고 했다. 이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비해 둔 곳이다.” 하셨다.

6. 이곳은 겉은 일반 건물인데, 속은 교회로 쓰기에 좋다. 건물 주인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데 예술적인 사람이라서 외국을 다니며 예쁜 디자인이나 유럽의 성당을 보고 그리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신부들이 쓰도록 예쁘게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그 건물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했다. 고로 만든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알아주고 그의 예술성을 알아주면서, 이 건물을 사면 만든 주인처럼 귀하게 쓰겠다고 하니 주인이 우리에게 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이 5억씩 더 준다고 했어도 그들은 자기 마음도 모르고 예술성이나 가치도 모른다고 하며 그들

에게는 안 판다고 했다. 건물을 지은 그 정성과 노력을 알아주고 예술성과 가치를 알고 귀히 여겨 주니 우리에게 판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계약하고 난 다음 날에도 어떤 자가 돈을 싸 짊어지고 계약하러 왔었다고 하면서 주인이 우리에게 전화가 왔다. 알아보니, 이단 종교에서 그 건물을 사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것을 다른 자에게 안 주신다.

7. 중도금을 내고 하나님께 이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곳은 교회도 아닌데 교회보다 내부가 더 좋다고 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이 구상한 것임을 100%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부들에게 주려고 표가 나게 구상하고, 손 큰 자를 통해 만들었다. 너희는 손이 작아서 안 되니, 세상 사람이 자기 것을 투자해서 짓게 했다.” 하셨다.

8. 그 건물의 내부 천장 높이는 보통 건물보다 무려 4배나 더 높다. 이를 구상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몇 주 동안 좋아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길이 일반 건물이라 그것이 좀 아쉽다고 했다. 그러다 며칠 뒤에 그 건물 외부 사진이 다시 와서 보니, 건물 외부도 내부만큼 신경을 써서 지은 것임을 알게 됐다. 교회 내부도 직사각형이고, 건물 외부도 직사각형이었다. 하나님은 한번 손대시면, 다 손대신다. 결국 겉도 속도 정말 멋지고 예쁘다고 시인하며 한 주 동안 계속 감사드렸다.

9. 하나님은 여러 가지 뜻을 두고 ‘신부들에게 줄 성전’을 그곳에 건축하셨다. 그리고 다른 자들이 자기들도 신부라고 주장하니, 하나님은 섭리사만 ‘온전한 하나님의 신부들’이라는 표를 내기 위해 ‘신부 상징’으로 건축한 이 교회를 섭리사에 주셨다. 이같이 행하신 것을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연을 더 이야기해 주신다. <아는 자>가 ‘주인’이 되게 하신다.

10. 마음도, 수고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공적인지 알아라. 알아주는 자에게 마음도 주고, 줄 것도 준다.

11. <역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드리고 늘 모시고 대화하는 자가 펴게 하신다. 그에게 성경의 인봉을 풀게 하시고, 새 역사의 주인이 되어 역사를 펴게 하신다.

12. 삼위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주면, 안 통한다.

13. <구시대 기성인들>은 새 시대가 왔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못 푸니, 모두 구시대에서 산다.

14. 지금 이 시대도 ‘삼위와 주의 심정을 알고 대하는 자’는 삼위와 주와 통하며 축복을 받고 산다.

15. 동물이든 곤충도 자기를 귀히 보고 대해 주는 사람에게 간다.

16.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휴거된 것>이 얼마나 귀하냐. 깨달아라.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시대 섭리사가 이룬 것을 ‘월명동 자연성전’으로 보여 주시고, ‘전 세계와 전국의 교회들’로 보여 주셨다. 이는 이 시대 섭리사가 이룬 것을 상징하는 것이며, 증거물이다.

18. <작품 교회>는 ‘시대 신부들’을 상징하는 것이며, ‘성경을 이룬 것’을 건물 작품으로 보인 것이다.

19. 어떤 교회는 ‘시대 사명자’를 상징하는 조각이 세워져 있었다. 그 조각을 세운 자는 ‘자기 목적’을 위해 세웠지만, 하나님과 주인은 그 뜻을 안다. 마치 자기 이름을 써 놓으면 자기는 알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은 아시고 시대 사명자는 본인이니 그 뜻을 풀고 안다.

20. <성경>도 사명자는 본인이 성경을 풀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 자기가 주인공인지 안다.

21. 만물로 계시하듯, 모두 건물로 표시해 놓고 증거로 만들어 놓았다.

22. 어떤 곳은 ‘시대 사명자의 기도 시간’을 상징으로 조각해 놓았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 <자세히 보는 자>만 알고, <주인>만 안다. 은밀하게 해 놓았으니, 아는 자만 기뻐서 보고 즐기며 삼위와 대화한다.

23. 하나님은 은밀하게 행하시어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두고 만들었으나 하나님은 뜻을 두고 만드신 것이다. <섭리인들>도 그러하다. 자기를 위해 만든다고 했어도 실상 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만든 것이 있다. 자기 목적을 빼면, 100% 하나님의 뜻을 두고, 주를 위해 만든 것이 된다.

24. <자기 인생>도 처음에는 자기 목적을 두고 살지만, 주가 오면 “하나님과 주를 위해 내가 태어났구나.” 한다. 저마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모두 상징으로 ‘자기 생각’에다, ‘몸’에다 표시해 놓았다.

25. 하나님도 해당되는 것은 비유해서 상징적으로 보이며 은밀히 말씀하신다. 교회도 그같이 ‘상징’으로 표시해 두셨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모르고 자기 목적을 위해 만들었으나, 주인이 오면 ‘자기 상징’을 알고 나머지 지울 것만 지운다.

26.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주의 것’은 다 표시를 해 두셨다. 어떤 자는 ‘생각’에 표시해 두시고, 어떤 자는 ‘특기’에 표시해 두시고, 어떤 자는 ‘행위’에 표시해 두셨다. <월명동>은 ‘형상’으로 표시해 두셨다. 초승달 형상, 용 머리 형상, 백보좌 형상, 독수리 머리 형상, 금단의 열매 형상 등이다. 이같이 저마다 표시를 해 놓았다. 자세히 보면 안다.

27. <월명동 나무나 돌들>도 이미 알려 준 대로 표가 나게 있다. 크거나 작거나 모두 ‘상징’이다.

28. 성경에 하나님이 세운 자들도 다 표가 나게 했다. 고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인했다.

29. 누가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전하는 말씀을 절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영적으로 보면 이마에 각종 ‘표’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마음에도, 소질에도, 지체에도, 재능에도 각종 ‘표’를 받았다. <하나님과 주의 것>은 다르다. 정신과 사고가 다르고, 사랑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다.

30. <작품 돌>도 하나님이 표시해 두신 ‘상징’을 보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알고 사 온다. 그 사연을 보면 역시 “맞다.” 한다. 징조와 계시를 통해 보이기도 한다. <자기>도 그러하다. 자기가 ‘하나님의 새 시대 사람’인지 만물로도 보이시고, 꿈으로도 계시해 보이신다. 이 오묘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행하여라.

<2018년 5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걱정, 근심하면 늙고 병이 드니 ‘자기 손해’다. 1. 걱정, 근심, 염려 거리가 있어도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으면, 자기도 늙지 않고 건강하여 해를 안 받으니 유익이다.

2. 누가 자기에게 심적 고통을 주려고 말이나 글로 괴롭혀도 상관하지 않고 그로 인해 더 기뻐하며 살면서 얻으면, 오히려 그들로 인해 더 잘된 것이다.

3. 어떤 자는 누가 자기를 무고히 괴롭히니, 더 열심히 뛰고 행하다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단계까지 하게 됐다. 고로 생각지도 않은 것을 하게 되어 ‘이상(理想)’을 이뤘다. 이를 두고 ‘화가 복으로 전환되었다.’ 한다. <괴롭힌 자>는 자기가 못되게 행했더니 오히려 괴롭힘을 당한 자가 더 행하여 잘됐다며 괴로워했다. 그러다가 신경성으로 병도 걸리고, 우울증도 걸려서 늘 탄식하며 살아갔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했던 자>는 누가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악평하니, 그로 인해 더 힘을 내고 열을 내서 할 일을 하게 됐다. 고로 불가능한 일까지 하게 됐다.

4.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다. 다윗 왕도 그러했고, 메시아 예수님도 그러했다. 다윗을 괴롭히던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을 괴롭히던 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 괴롭힘을 당했어도 다윗은 당세에도, 그 후손들도 잘되고 형통했다. 메시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그 자손들과 따르는 자들은 2000년 동안 번창하고, 그 영들이 천국에 갔다.

5. 누가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면, 더 뛰고 아예 말을 탄 자같이 뛰어라.

6. 어떤 자는 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재밌게 놀기도 했는데, 그 마을의 일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여 그들과 다투었다. 결국 그들에게 맞고 분해서 그냥 나왔다. 그리고 후에 다른 마을에 갔는데, 거기서는 그를 반겨 주고 잘 대해 주었다. 고로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던 뜻을 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산 너머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거기에 불량배들이 있으니 나오길 잘했다고 귀띔해 주었다. 고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서 나오길 잘했다고 하며, 거기에 투자했으면 결국 다 뺏겼을 것을 알고 빨리 나온 것을 기뻐했다.

7.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하다. 반기면 전하고, 싫어하면 미련 없이 끊고 나와라. 세상에 사람들이 많고 많다. <뜻>이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함께하시어 오게 한다.

8. 장래를 보고 ‘복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려라. 잡초 밭, 자갈밭 같은 마음에 씨를 뿌리면, 키우기도 가꾸기도 힘들다. 결실해도 기대에 어긋난다.

9. 한번 농사를 지으면, 긴 세월 동안 수고해야 된다. <신앙 농사>도 그러하다.

10. <사람>은 천층만층이니라. <좋은 자>가 ‘좋은 자’를 찾아 복음을 넣는다.

11. <좋은 씨>를 뿌려야 수고해도 희망차고, 가을이 와도 기쁘다.

12. 산의 나무도 보면, 좋은 나무는 퇴비하고 수고해서 키워도 아깝지 않다. 잘 커서 가지가 굵고 높이 뻗어 있다.

13. <바닷고기>도 수백 종이 있다. 기술대로, 준비한 대로 잡게 된다. <생명>도 ‘세상의 바다’에서 그러하다.

14. 크게 행하여 큰 그물로 잡아야 큰 고기를 잡는다. 새우나 멸치는 잡아도 더 안 크다.

15. <사냥꾼>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술대로 짐승을 잡는다. 토끼, 사슴, 멧돼지, 얼룩말, 기린, 치타, 호랑이, 코끼리가 있어도 겁쟁이들은 그중에서 토끼나 잡는다. <이 시대 생명들>도 그러하다.

16. <전문 사냥꾼들>이 잡아 와도 ‘기르는 자들’이 기술도 없고 무지하면 제대로 못 기르니, 망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이같이 생명들을 제대로 기르지도 못하면서 자꾸 목회하겠다고 졸라 댕다.

17. 자기를 챙기듯 다른 생명들도 챙기고 아껴 주며,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해 주어라. 자기가 수종자가 되어 왕같이 대해 주면, 죽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그러고 나서 ‘말씀의 진수정찬’으로 뜨겁게 대접해 줘야 된다. 그러면 스스로 크다가 완성하여 존재하게 된다.

<2018년 5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마음>이 거칠고, <말하는 것>이 거칠고 강한 자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자가 지나치게 사람의 살을 빨갱게 칠하는 것과 같아서 보기 흉하니라.

2. <두 가지 영감>이 왔을 때 ‘한 가지’를 쓰고 나면 ‘나머지 한 가지’는 그 순간 사라지듯이, <두 가지 급한 일>을 놓고 그중에 ‘한 가지’를 하고 나면 ‘나머지 한 가지’는 순간 잃게 되고 시간도 가 버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기억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일도 할 수가 있느니라.

3. <두 가지 영감>이 동시에 오면, 그 시간이 ‘1초’도 안 되어 사라지느니라. 고로 <하나>를 쓰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사라지나니, 그러므로 <두 가지 영감>에 해당되는 각각의 첫 글자를 일순간 써 놓으면, 두 개 다 잃지 않게 되느니라.

라. 이는 마치 <두 마리의 새>가 순간 자기 몸에 앉았는데, ‘한 마리’를 잡고 나서 ‘다른 한 마리’를 잡으려면 이미 ‘다른 한 마리’는 날아가서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두 마리의 새>가 앉으면, 동시에 두 마리를 잡아야 둘 다 잡을 수가 있느니라. 만사의 일도 이같이 해야 하느니라.

4. <영감>은 ‘영의 생각’에서 왔으므로 한번 그 생각을 잃으면, ‘육의 생각’에서는 다시 그 생각이 나지를 않나니, 그 순간 ‘영감’을 잡지 못하면 잃고 다시 찾지를 못하느니라.

5. <두 생명을 다룰 때>도 ‘한 명’을 관리하고서 끝내고 ‘다른 한 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이미 그 생명은 사라져 잃게 되나니, 동시에 두 생명을 조금씩이라도 관리하면 둘 다 잃지 않게 되느니라.

6. <두 가지 영감이 오는 원인>은, 하나는 ‘영적’이고 다른 하나는 ‘육적’인 것이라 그러하고, 혹은 하나는 ‘주체’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라 그러하고, 혹은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인 것이라 같은 질에 속하여서 두 감람나무같이 동시에 짝지어 오기 때문이니라. 이같이 <생명>도 그러하고, <존재물>도 그러하니라.

7. <동시에 두 개씩 영감이 오는 것>은 마치 ‘쌍둥이’ 같으니라.

8. <일>도 동시에 비슷한 것이 오고, <복>도 <화>도 동시에 거듭 오기도 하나니, 이는 양극과 음극이 ‘짝’을 지어 ‘전 파’로 다니는 것과 같으니라.

9. <유전자>도 두 개씩 ‘짝’으로 붙어 나오나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음이니라.

10. 영감이 두 개가 왔을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순간 기록하여 내용을 보니, 마치 ‘남녀 한 쌍’과 같았느니라. 하나는 ‘내적 말씀’이었고, 하나는 ‘외적 말씀’이었도다.

11. <두 생명>이 동시에 와서 각각 쪼개어 맞고서 가르치고 보니, 하나는 영적인 자, 하나는 육적인 자였도다. 이로써 <만물>도, <어떤 사건>도, <축복>도, <화>도 그러함을 깨달았나니, 이 신비함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존재하게 창조하신 것임을 알았노라.

12. <만사의 모든 것>에 ‘짝’이 있나니,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로 보기 때문이니라.

13. 남녀 짝이 있고, <여자> 중에서도 ‘같은 성격, 행실, 성품, 생각’이 있는 자가 있고, <남자> 중에서도 ‘같은 성격, 행실, 성품, 생각’이 있는 자가 있나니 그로 인해 동성연애도 하느니라. 이들은 ‘같은 질, 같은 모양, 같은 형체, 같은 존재의 짝끼리 사랑을 맺고 연혼하는 자’인 고로, ‘상대성 짝’이 아니고 ‘부끄러운 사랑’이니라.

14. <상대성 짝>은 ‘내적’인 자와 ‘외적’인 자여야 되느니라. 이는 창조자 하나님의 순리와 질서이며 영원한 법이니라.

15. 하나님도 천국의 피조물은 같은 존재체라 그들과는 ‘자녀급, 형제급 사랑’만 이루고 ‘짝이 되는 사랑’이 안 되니, ‘내적, 영적 세계’와 짝이 되는 ‘외적, 육적 세계’를 세상에 창조하시어 <인간의 육에서 낳은 영체>를 ‘상대적 존재, 사랑의 대상, 신부’로 삼으시고 사랑을 이루시느니라. 이를 위해 아담 이후 6000년 동안 점진적으로 역사해 오셨느니라.

16. <구약 4000년>은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역사해 오셨고, 그다음 <후 아담,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은 ‘부모와 자녀 입장’에서 사랑해 주며 역사해 오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담>을 ‘신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역사하시며 1000년 동안 땅에서도 혼인 잔치 하고, 영은 휴거시켜 황금성 천국에서 혼인 잔치 하느니라. 지금이 그때니라.

17. <상대성 세계>는 모두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하나 되어 ‘짝’을 이루느니라. <같은 질, 같은 모양, 같은 형상>끼리는 ‘짝’이 될 수도 없고, 번성도 안 되고, 생명력이 없느니라.

18. <상대성 짝>으로 ‘두 세계’가 하나 되면 원(原) 존재를 따라 계속 변창하는 역사가 이어지지만, <같은 질, 같은 모양, 같은 형상>끼리는 생각이나 정신세계에서만 하나 되고 끝나니 그 기쁨과 사랑도 관념적인 것이니라.

19. <신앙>도 ‘상대성 신앙’이 아닌, 같은 질인 ‘지체’끼리는 생명력이 없느니라.

20. <그리스도>는 ‘하늘’이요, ‘삼위의 땅의 상대’인 고로, <그를 머리로 삼고 신앙을 하는 자들>은 변창하게 되느니라. 그러지 않고 ‘같은 생각, 같은 질’끼리 ‘자체적 짝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당세로 끝나거나, 혹은 잠시 육성으로 흐르다 결국 마른 물같이 되느니라.

21. <이단들>은 스스로 자기를 머리로 삼고, ‘같은 지체’를 머리로 삼고 사니, 결국 육으로 끝나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니, 삼위는 머리가 되어 주지 않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동성연애 신앙을 하는 자’와 같으니라. 시대는 이를 깨닫고 그들의 행위를 알지니라. 이들은 <신부>끼리 “나는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하고 사는 자들이니라.

22. <머리>는 ‘하나님이 땅에 보낸 자’이니라. 그는 ‘땅의 하나님의 머리’인 고로,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다름과 같이 그의 생각이 다르니라. 고로 <보낸 자>는 ‘땅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머리’로서 삼위의 생각을 받아 주어 ‘지체들’이 행하게 해 줘야 하리로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만물의 이치>는 그 ‘본질의 법칙’으로도 알고, ‘생긴 것’으로도 아니니, <사람>도 그 ‘행함’과 ‘본질의 말씀’으로 아느니라.

2. <머리>가 몸과 ‘하나’이듯, <시대 주>도 그 따르는 자들과 ‘하나’이니라.

3. <머리>끼리 ‘짝’이 될 수 없고, <지체>끼리도 똑같이 생기고 질이 같다고 해서 ‘짝’이 될 수 없느니라. 이는 <전기>가 ‘같은 극’끼리 하나 되면, 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4. <같은 생각, 같은 질, 같은 모양>이 짝이라고 하며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사랑한다 해도, ‘상대성 짝’끼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도 못하느니라. 이는 <상대성 짝>끼리 사랑하는 것과 아예 비교도 안 되나니, <같은 생각, 같은 질, 같은 모양>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법, 사랑 법’을 떠나서 죄를 범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니라.

5. <사람의 머리, 생각>은 만드는 대로 다 되느니라. 다만, 만들어도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니라.

6. <고욤나무>끼리 접붙이면 ‘같은 고욤나무’요, <고욤나무>에 ‘참감나무’를 접붙이면 ‘참감나무’로 변화되어 이상세계가 되느니라.

7. <숫자 세계>도 ‘짝수’끼리 하나 되게 더하면 같은 ‘세상 수, 짝수’ 밖에 아니 되나니, <홀수>와 <짝수>를 하나 되게 더하면 항상 ‘하늘 수, 홀수’가 되느니라. 전능자 하나님은 동일한 법칙으로 창조를 해 놓으셨나니, 만사의 모든 이치도 그러하니라.

8. <짝>으로 오되, 먼저는 ‘육 있는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9. 처음에 ‘육적인 구약역사’요, 그다음에 ‘영적인 신약 자녀 역사’이니라. 그다음에는 ‘더 신령한 성약 신부 역사, 내적 역사’를 보낸 자로 말미암아 하였느니라.

10. <육>은 ‘구약’과 같고, <혼>은 ‘신약’과 같고, <영>은 ‘성약’과 같으니라. 성약 때는 <사랑>으로 ‘영’을 완성하여 휴거를 이루고, 창조 목적을 이루는 때니라.

11. <개인>도, <시대>도 ‘그 주관권’ 외에는 못 하느니라. <한계선>은 ‘땅’과 ‘바다’같으니라.

12. <시대>도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못 하나니, <다음 역사의 때>가 오면 ‘다음 역사’로 넘어가야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13. <구시대>는 ‘새 시대’가 와도 계속 그 주관권 안에서 뜻을 펴 나가나니, 이는 존재시켜야 되기 때문이니라. 이는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 때’가 가고 ‘아버지 때’가 와서 새롭게 해도, 할아버지는 그 주관권에서 계속 늙어 가면서 하던 일을 하다가 죽는 것과 같으니라. 마찬가지로 ‘아버지 때’가 가서 ‘자녀들’이 역사를 펴며 새 시대의 일을 해도, 아버지는 계속 그 주관권의 삶을 살면서 가느니라. 이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니라.

14. <신약역사>가 와도 ‘구약역사’는 그 주관권 안에서 그 뜻을 펴 갔느니라. 또 <새 역사, 신부 시대>가 와서 거기에 택한 자들이 모여들어 역사를 펴도 ‘구(舊)역사, 신약역사’는 계속 그 주관권 안에서 그 뜻을 펴 가느니라.

15. 하나님은 ‘새 시대’를 중심하여 뜻을 펴실 뿐이니라.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꽃과 열매’를 위함이니, <주인>이 ‘열매’를 중심하여 일하는 격이니라.

16. 하나님은 ‘때’를 따라 행하시느니라.

17. <동시에 오는 것>은 동시에 행하면 둘 다 얻을 수 있고, 둘 다 잡을 수 있느니라. 다만, <시작>을 동시에 해야 되느니라. 이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섞어서 칠해야 ‘합당한 색’을 내는 것과 같으니라.

18. <교회>도 때가 되어 ‘짜’를 지어 주셨나니, 하나는 ‘내적 교회’, 하나는 ‘외적 교회’이니라. 그 실체적 행함이 중심이 되느니라.

<2018년 5월 1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탄과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말’로 쫓기보다, ‘행동’으로 행할 것을 행하면서 쫓는 것이다.

2. <사탄>은 ‘입’으로 쫓기보다 ‘행동’으로 쫓아내라.

3. <실천할 것>을 하면, 길이 다르니 사탄이 쪼개져 간다.

4. <의의 행위>로 ‘사탄’도, ‘악’도 쪼개기다.

5. <시간>은 ‘육의 시간’과 ‘영의 시간’ 중에서 ‘육의 시간’을 쪼개 내기다.

6. 쪼개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7. 안 쪼개면, 사탄같이 들러붙어 있다.

8. <자기>가 사탄을 쪼개 내라.

9. <인사탄>과 <마귀들>을 쪼개 내면, ‘성령님’이 오신다.

10. <사탄>을 쪼개 내야, ‘말씀’이 온다.

11. <사탄 쪼개기>와 <사탄 자르기>다.

12. <불의한 행위>를 자르면, ‘사탄’도 같이 잘린다.

13. 사탄을 쪼개 내야, 마음 편히 산다.

14. <마음 문> 잠그기다.
15. <문단속>이다.
16. 죄를 회개하면, 사탄은 죄와 같이 사라진다.
17. <죄 짐>, <사탄 짐>이다.
18. <장자권>을 위해 ‘투쟁’이다.
19. <장자권>을 위해 ‘자기 육’과 겨룬다.
20.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 ‘적’이다. 늘 이들과 겨룬다. 상대뿐 아니라 <자기 육>도 그러하다.
21. <오랜 연륜>도 필요 없다.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느냐다.
22. <영적 장자권 삶>을 살아야 영이 크고, 빛이 난다.
23. <영적>으로 안 살면, ‘신앙의 열매’가 기대에 어긋나게 너무 작다. 이를 알고 자기도 놀란다.
24. 자기가 봐야 놀라고 충격 받고 고친다.
25. <세계에 소문난 큰 교파>도 가 보니 ‘나무’는 큰데 ‘열매’가 콩만 하였다. 그래서 충격 받고 다른 것은 확인도 안 하고 ‘형편없구나.’ 했다. 영적으로 보니, 나무에 뱀이 칭칭 감고 있었다. <나무>는 ‘그 교파의 사람들’이다. 핵을 보인 것이다.
26. <섭리사>는 ‘시대’도, ‘말씀’도 다르니, ‘열매’도 다르다.
27. <섭리 열매>를 열려면, 퇴비하고 공적을 세우고 가꿔야 된다.
28. <보고>하고 하기다.
29. <장자권>을 뺏으려면, 반드시 ‘보고’하고 하기다.
30. <주>께 ‘보고’하지 않고 하면, 그들이 그 센터를 책임져야 된다.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답’은 수학 공식의 답같이 ‘한 가지’가 아니니라.
2.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도 어느 때는 예쁘게 안 보이고 보통으로 보이거나, 이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있느니라. 화장술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그때의 인상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자서 헬썩해 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보는 자가 근본을 보고 속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니라. 혹은 보는 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고, 혹은 계속 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 그 전과 다르게 보이고, 혹은 조명이 비추었을 때 본 것과 평소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니라. 또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육’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니라. <영>이 어둡고 미를 갖추지 않았든지 죄 속에 있으면, 육이 예뻐도 그 육신의 미가 사라져 보이게 되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美)는 다르니, <신의 생각>이 임하여 보면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느니라. 또 어느 때는 상대의 행위가 의로워서 그 행위로 인해 본래 ‘육신의 미’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보는 자의 인식>에 따라 더 예

쁘게 보이기도 하나니 이는 자기가 극히 사랑하는 자이면 다른 자보다 ‘자기 사랑의 대상’이 더 예쁘게 보이게 되느니라. 이같이 <사람의 미(美), 아름다움>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듯, <사람의 선악을 두고 인생을 평가할 때>도 수학 공식의 답같이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느니라.

3. <아름다운 자>도 어느 때는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다가도, 어느 때는 ‘내가 전에 본 것이 착각인가? 예쁜 자가 아니구나.’ 할 때가 있느니라. 몸살 나고 아프면, 금방 아름다움을 잃게 되느니라.

4. 사람은 개성대로 아름답고 예쁘니라. 다만, 그때마다 ‘상대의 인상과 차림’에 따라 다르고, ‘보는 자의 기분과 인식’에 따라 다르기도 하느니라. <보는 자의 상태>가 안 좋으면, 아름답고 예쁜 자라도 예쁘게 안 보이느니라.

5. 한번은 화면에 아주 아름다운 자가 보이기로, ‘타고났구나. 미(美)도 역시 골격과 형상과 모양을 타고나야 된다.’ 하였다. 그러다 며칠 뒤 화면을 보니, 시골 풍경이 나오고 그곳에 사는 젊은 여자가 나오고 있었다. 그 여자를 보면서 ‘아름다움이 시골에 어울리는 자구나. 시골에 사는 자구나.’ 했다. 자세히 보니, 며칠 전 화면을 보면서 예쁘다고 한 자였다. 자기 고향에 부모를 도우러 간 것이었다. 자기 부모 집에 갔으니, 옷도 편하게 입고 얼굴도 화장을 안 한 것이었다. 이리도 다르니라. <화장>으로 아름답고 예쁘게 얼굴을 바꿔 놓은 자 가 많고도 많으며, 그때마다 ‘인상’에 따라, ‘옷’에 따라 아름다 움이 좌우되는 것이니라.

6. <사람 얼굴>은 ‘무대’와 같으니라. 꾸미면 화려하고 아름답고, 힘들어서 안 꾸미면 보통이니라.

7. <육>은 이같이 그때마다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보통으로 보이기도 하나 <영>은 ‘육’과 다르나니, <영>은 자기 일생 동안 쌓은 공으로 인하여 미(美)가 나타나느니라. 고로 <육>같이 화장술이나 인상 등으로 일순간 변하지 않느니라.

8. <영>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조금씩 변하고, ‘아름다움을 상실한 영’으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점점 변해 버리기도 하느니라.

9. <미(美)를 상실한 영>이 다시 아름답게 되려면, 그 육신이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행해야 되기에 오래 걸리느니라.

10. <휴거된 영>이 제일 갖췄으며, 제일 아름다우니라.

11. <휴거>는 ‘영’이 휴거 선까지 갖추고 완성을 해야 되느니라.

12. <휴거>는 마치 결혼식 날 신부가 꾸미고 갖추듯, 근본의 형상과 모양이 갖춰져야 되기에, <휴거된 영>은 다 예쁘고 아름다우니라.

13. <세상 결혼식>에서 신부는 마치 무대를 꾸미듯 꾸밈기에 화장을 지우고 드레스를 벗으면 보통이지만, <휴거된 영>은 육신의 행위로 ‘근본 영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 놓았기에 언제 봐도 아름답고 예쁘니라.

14. <휴거된 영>은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과는 아예 다르게 만들어 놓듯이 만들어 놓아서 언제 봐도 아름답고 예쁘니라.

15. <영의 권세와 영광과 위치>를 ‘아름다움’으로 나타내느니라.

16. <영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 영의 계급과 영광과 벼슬까지 알 정도이니라. <옷>도 그 위치만큼 갖추고 있느니라.

17. <세상>에서는 자기 아름다움, 영광, 재능, 재산, 환경 등을 ‘자기 육신’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나, <영>은 다 ‘자기 몸’으로 나타내느니라.

18. <육신의 미>는 꽃같이 지고 사라지나, <영>은 갓출수록 더 빛나게 되고, 영원히 지니고 살게 되느니라.

19. <본래 영체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그 빛을 ‘해’같이 발하시느니라. 그 아름다움도 그 러하니라. 그 아름다움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눈으로 봐야만 하리로다.

20. <삼위의 형상>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이시나, <그 존재의 빛과 찬란함>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나니, 태양이 우주를 비추듯 그 빛으로 ‘영의 세계, 천국’을 비추시느니라. 그 빛은 ‘사랑과 의로움과 선함과 아름다움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움과 공휩함을 가진 존재의 빛’이니라. 또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을 가지고 빛을 내기도 하시느니라.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 깨닫는 게 ‘답’이다.
2. 깨닫고도 안 하면, 그는 ‘답을 못 쓴 자’다.
3. <주>도 <성령님>도 깨닫게 해 준다. 이는 ‘답을 준 것’이다.
4. <문제의 답>을 쥐도 안 쓰면, 그는 ‘그 문제의 답을 못 맞힌 자’다.
5. <시킨 것>이 ‘답’이다.
6. <삼위가 말씀하신 것>이 ‘답’이다.
7. <답>은 ‘하나’다. 그다음은 상황이 뒤바뀌니 문제도 다르고, 답도 다르다.
8. 하나님도 성령님도 깨닫게 해 주신다.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하면 된다.
9. (반복) 깨닫는 게 ‘답’이다.
10. <답>만 알면, ‘쓰는 것’은 아주 쉽다. 순간 쓴다.
11. <답>을 안 쓰면, 머릿속에 ‘문제’로 남아 있으니 골치 아프다.
12. 새벽에 잠에서 깨고 10초 내에 못 일어나면, ‘그 시간에 해당되는 답’은 사라진다. 그다음 시간은 ‘문제’도 바뀌고, ‘답’도 바뀐 시간이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도우실 때는 ‘생각’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라 모두 뇌에 ‘영파’로 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이다.
14. <신>은 말이 없으시다. 무언(無言)하시며, ‘마음과 생각’으로 깨닫게 하신다. 이것을 깨달아라. 깨닫는 게 ‘답’이다.
15. <깨달고 할 때>는 마치 시험을 볼 때 순간순간 답을 쓰듯 해야 된다.
16. 어느 때는 물건을 던져 주면 그 순간 잡듯이, 깨달고 순간 해야 된다.
17. 깨달고 동시에 하기다.
18. <깨달은 것>을 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이었다. 그러니, 하면 된다.

19. 가령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줬으면, 고기를 불에 구워야 답을 쓴 것이다.
20. 하면, 100%다.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다.
21. 하나님과 성령님은 새벽에 먼저 깨닫게 해 주신다. 그리고 낮에 문제들이 오면, 깨달은 대로 그대로 하게 하신다.
22. 하나님과 성령님은 먼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오게 하신다.

<2018년 5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어째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해라.”만 하신다. <어째서 해야 하는지>는 ‘비밀’이다.
2. 가령 ‘차에서 내려야만 한다.’ 혹은 ‘이것을 사야 된다.’ 하는 것만 깨닫게 하신다. <왜 내려야 하는지, 왜 사야 하는지>는 차에서 내려 보면 알고, 사 가서 보면 본인이 안다. 사 가서 보면, 그 물건에 진주가 들었는지, 혹은 물건이 희귀종이었는지, 혹은 자기가 찾던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왜 해야 되는지 ‘결과’를 알고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한 격이 된다.
3. 성령님은 ‘감동’만 주신다. <감동>이 ‘말’이다. 그대로 하고 나니, 원하던 것이 있었다. 문제가 해결됐다.
4. <깨달음>이 와도, 자꾸 물어보아라.
5.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도, 이것이 자기 생각인지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 물어라. 행하면서 자꾸 물어보아라. 성령님이 하신 것이면, 가르쳐 주시며 감동을 주신다.
6. 어느 때는 ‘깨달음’이 슬쩍 스쳐 간다. 고로 대개 안 하게 된다. 어느 때는 만물로 거듭해서 보여 주실 때가 있다. 신경 쓰고 물어라.
7. 성령님은 안 보이시니, 확신하기 위해 물어보아라. 그리고 집중해라.
8. 성령님은 ‘실체’와 함께 하신다. <자기 몸>을 쓰고 말하게 하는 것이 실감 있다.
9. <영들>은 ‘육신’을 안 쓰면, ‘육 있는 자들’과 멀다. 딴 세계 존재다. 10년, 20년이 가도 볼 수 없다.
10. <혼>은 ‘꿈’에서 본다. <혼>과도 늘 이야기해야 된다. <대화>다.
11. <사람>은 같은 ‘육’이라 즉시 통한다.
12. <하나님>도 ‘메시아’가 없이는 땅에서 뜻을 못 이루신다. 이는 마치 <남자>가 ‘여자’ 없이는 아기도 못 낳고, 사랑도 온전히 못 하는 것과 같다. 고로 하나님은 ‘보낸 자의 육’을 통해 휴거도 이루신다.
13. <메시아>도 낳아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성자의 몸’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낳고 키웠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14. <메시아, 선지자, 중심인물>은 ‘삼위의 보이는 육’이다. <삼위>는 ‘육’을 쓰고 나타나신다. <그 육을 보는 자>가 ‘육성’으로 보면 일반 사람과 같이 보이고, ‘영성’으로 보면 그때는 ‘그 육을 쓴 근본자’가 보이니 달리 보인다. 이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과 같이 다르다. ‘저것은 금철한 것이 아니라 <순금 덩이>다.’ 하고 알고 보는 자는 모르고 보는 자와 그 생각도, 행위도 전혀 다르다.
15. <주>를 볼 때 하나님과 성령님을 겹쳐 보지 않는 자는 ‘육적으로만 보는 자’다.

16.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이니, 자존심과 권위가 있다. 그런데 가치를 모르고 대하고, 그 차원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대하면, 후에 만민 앞에서 자기 꼴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한탄하게 한다.

17. <마음만 큰 자>는 아무 소용없다. <실체가 큰 자>가 돼야 된다.

18. <주>는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해를 받아도, 모르고 대해도 그냥 놓아둔다. 다만, 하나님과 의논하고 계산한다. 한세상이 다 가도 말하지 않고, 자기와 통하는 자와도 깊은 것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께만 이야기한다. <행하는 자>에게만 스스로 깨닫게 ‘답’을 준다.

19. <순금 덩어리>가 되어서 일체 되어 주를 대하는 자만 알고, 얻고, 주와 같이 먹고 마시며 간다. <진실로 대하며 행하는 자>만 통한다.

20. 깨달아라. 깨닫는 게 ‘답’이다.

21. <주>를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22. <지난 10년>이 ‘주를 만나기에 최고 좋은 때’였다.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다. <갇혔을 때>는 집중해서 그 창구멍으로 쳐다본다. 독수리가 나오면, 또 창공으로 날아다녀야 된다. 그 눈으로 세상 전체를 쳐다봐야 된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을 보아라. 갇혔을 때는 보이지 않으니, 집중해서 본다. 소식을 주는 자와만 가까이하게 된다. 때가 돼서 많은 자들을 보면, 그때는 많은 자들을 쳐다보게 된다. 지난날을 회상하며 본다.

23. 또 성경 이사야 11장을 읽어 보아라. 깨닫게 해 준다.

24. 이제 때가 되니, 상황이 바뀌었다. <제대로 보는 자>만 보인다.

25. (성령님) 싫으면, 뒤바뀌어 보인다.

26. (성령님) 좋으면, 뒤바뀌어 보인다.

27. <성령님>이 ‘답 덩어리’이다.

28. 일체 되면, ‘답’이 온다. ‘깨달음’이 온다.

<2018년 5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겸용’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2. <해당되는 핵>만 창조해도 쓸 수가 있는데, 아름답게 ‘겸용’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3. 월명동도 <해당되는 것>만 창조하면 되는데, 아름다운 것을 넣으려고 ‘겸용’으로 창조하셨다.

4. <쓰는 핵>과 <핵을 둘러싼 존재>다.

5. <반지의 알>은 ‘핵’이다. <그 주변>은 ‘핵을 둘러싼 존재’다.

6. <겸용>은 ‘짜’이다.

7.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 다 ‘극적인 디자인’이다.

8. 지구상에서 ‘최고의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사람’이다.

9. <월명동>을 종합해서 보면, ‘3.16’을 갖췄다. 크게 보면 ‘6개’를 갖췄고, 센터별로 ‘3개’를 갖췄고, 다른 데서는 갖출 수가 없는 것 ‘1개’를 갖추고 있다.

10. <최고의 인테리어>는 ‘짜’를 갖춰야 된다.

11. <핵>과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이다. <짜>이다.

12. <지구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상과 디자인>은 ‘타원형’이다. 단 하나만 꼽으라면, ‘사람’이다.

13. 있어도, 100% 안 찾으면 못 찾는다.

<2018년 5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이 최고로 할 때 ‘표적’이니라.

2. <남의 것>일 때는 ‘열의 하나’ 정도 아깝게도 생각하고 혹은 귀하게도 생각하나, <자기 것>이 되면 ‘열 개면 열 개 모두’ 아깝게 생각하고 혹은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나니, 느끼는 것도, 기뻐함도 이같이 그러하느니라.

3. <자기 소유권의 기쁨>을 크게 누리려면,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해야 하리로다.

4.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과 만물들을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로부터 영광도 받고 기뻐하시나니, 어느 때는 인간이 스스로 잘못하여 다치거나 죽으면 아깝게도 생각하시고 슬퍼하시느니라.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밤낮으로 생명도 살피시고, 만물들도 살피시면서 돕고 사랑해 주시느니라.

6. 사람들과 만물들이 해를 받아서 고통을 받거나 죽어 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은 ‘남의 것’이기에 그러하니라.

7.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손도 대고, 돕고, 관리해야만이 ‘자기 소유권의 기쁨’도, ‘희망’도 누리느니라. <자기 몸>과 같이, <자기 가정의 것>과 같이 이웃도, 민족도 돕고 관리해야 되느니라. 그리하면 사람들과 만물들로도 ‘창조주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기뻐하며, 교통하고 대화도 하며 살게 되리로다.

8. 지구 세상의 것들은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 각각 있지만, 모두 ‘제2의 주인’이 되느니라. 지구 세상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그러하나니,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지구 세상도 모두가 주인이 되어 쓰며 살리로다.

9.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사랑하면서 삼위와 함께 돕고, 다스리고, 얻고, 살아야 되느니라.

10.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자기 몸과 같이 기쁨을 얻고 그로부터 사랑도 느끼고 얻으리로다.

11. 알고 보면 인생 일생 동안 ‘자기 하나’ 만들고 가기에다 바쁜 인생이니라.

12. 전능자가 함께하사 많은 생명들을 ‘생명길’로 가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나니, 저마다 해 준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자기 육도 영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으로 길러야 되느니라.

13. <짐승>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여 키우고 관리하면 잡아먹을 수가 없고, ‘타인’은 그러지 않았기에 음식으로

좋아하며 잡아먹을 수 있나니, ‘관계와 관리’가 이같이도 크니라.

14. <자기 것>이 되면 대함이 다르느니라.

15. <물건>도 사기 전에는 관심 없던 것도, 사서 ‘자기 것’이 되면 좋아하고 사랑하며 자랑하게 되느니라.

16. 모두 수고하여 돕고, 관리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인의 기쁨’을 더 누리라.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이 시대>는 모두 ‘신부 시대’가 핵이 되어 ‘신부 시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로 애인같이 묶여져 돌아간다.
2. <종교, 정치, 예술, 경제, 사회 체계>도 모두 애인같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산다. 그 외에 다른 자는 같은 취급을 안 하고, 통하지도 않는 다. <이 시대>가 그러하다.
3. 하나님이 신부 시대를 이끄시는 대로 세상도 그같이 되어 간다. <섭리사>가 ‘핵’이니, 먼저는 섭리사에서 은밀히 해 왔다. 2015년 3월 16일까지 신부 역사를 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뤘다. 먼저는 신령한 자, 그다음은 욕 있는 자다. 그리고 <욕에 속한 자들>도 때가 되어 모두 ‘섭리 같은 체제’로 바꾸고 그같이 해 간다. 고로 전도하기가 어렵다.
4. <자기 주관권>이 아니면, 서로 안 통하는 시대가 되었다. <애인 시대, 짝 시대>가 돼서 그러하다. 예전하고 아주 다르다. 이를 알고 행하면 된다.
5. <시대>를 쫓으니, <시대 문제>를 풀어 행해라. <답>을 주면, 누구나 문제를 푼다.
6. <시대>를 빨리 파악해야 된다.
7. <시대>가 ‘문제’다. <문제>를 알아야, ‘답’을 계산하여 빨리 해결한다.
8. <시대를 모르는 자>는 ‘답’을 알 수가 없다.
9. 문제 속에 ‘답’이 있다.
10. <생명들을 다룰 때>도 ‘문제’를 모르면, 그들을 못 다스린다. <문제를 아는 자>의 것이 된다. 골치 아프지만,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쥐야 끌고 간다. 고로 문제가 있다고 “머리 아프다.” 하며 피하지 말고 해결해 주고 다스리기다.
11. <주>는 ‘시대의 문제’와 ‘성경의 문제’를 알고 풀어서 행했다. 그리함으로 역사를 세우고 이룬 것이다.
12. <기성>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문제>를 ‘답’으로 알고 마냥 살아간다.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다 늙었다. 부모 때에 안 왔으니, 자녀들에게 “기다려라.” 하고 그들까지 기다리게 한다. 자기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자녀들까지 눈 빠지게 한다. 계속 그리한다. 다람쥐가 쳇바퀴에 갇혀 있는 한, 계속 쳇바퀴를 돌린다.
13. 사람은 환경대로 살게 된다.
14. 운동기구를 만든 대로 그 운동기구를 접하며 사용하게 된다. 가령 <매달리는 운동기구>를 접하면 누구든지 매달리게 되고, <뛰는 운동기구>를 접하면 누구든지 뛰게 된다. <환경>이 그같이 하게 한다.
15. <환경>이 ‘산’인데, 거기서 ‘배’를 타겠느냐.<환경>이 ‘바다’인데, 거기에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겠느냐.

16. <월명동 환경>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니 ‘이상세계’가 되어 쓴다.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는 ‘고통의 환경’이었다. 그곳을 보며 내내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다. 지금은 그 장소를 개발하여 ‘천국’같이 쓴다.

17. 자기 몸도,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혼도, 영도 ‘삶의 환경’이다. 고로 만들어라. 자기를 만들 말씀을 모두에게 줬다. 만들어야, 육도 혼도 영도 ‘이상세계’가 된다.

18. <하나님의 환경>, <성령님과 성자 주의 환경>으로 만들어라. 만든 만큼 사용한다.

19. <뛰는 운동기구>에서 ‘물구나무서기 운동’을 할 수 없듯이 ‘자기 행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

20. <월명동 폭포>를 안 만들고서 ‘폭포수’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절대 안 된다.

21. 월명동의 제1폭포를 만들기 전, 잔디성전 앞에서 일하다 한여름에 더워서 모두 고생하기에 선생이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씻겨 줬다. 그때 깨닫기를 ‘호스에서 물이 쏟아지듯 하는 폭포수를 만들면, 그 밑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 좋겠다.’ 했다. 고로 <계단식 폭포수>를 만들어서 그 길로 걸어올라 다니면서 ‘앞산 오르는 길’도 되게 하려고 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상 주신 것을 빨리 행하려고 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폭포로 만들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했다. <남자>를 두고 ‘여자’로 생각하지 못하듯이, ‘높은 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 생각은 아예 못 했다.

22. 그곳은 골짜기라서 지형이 낮고 폭 꺼져서 ‘이곳에 돌을 어떻게 쌓지?’ 하고 늘 걱정하는 위치였다. 그러나 ‘높은 폭포수’는 아예 생각을 못 했다. 위치상으로는 ‘폭포수’를 만들면 어울리고 좋은데, 경사가 20도 정도로 낮아서 거의 평지 같았다. 공사를 하기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정도였다. 월명동에 살면서도 그곳에 ‘높은 폭포수’를 만들 생각을 한 일이 없었다. <물레방아 장난감>도 돌릴 만한 경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월명동 개발하기 전 사진을 보면, 경사가 ‘살찐 사람의 발등’ 정도였다. 고로 ‘이곳에는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서 비 올 때는 물이 내려오게 하고, 평소에는 <앞산 길>로 쓰게 하자.’ 하고 혼자 계획하고 하나님과 성자께 이야기했다.

23. 좌우는 ‘산’이라 경사가 높으니, 돌을 쌓기 좋았다. 그런데 앞산 골짜기는 지형이 낮으니, 이를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의논하다가 ‘약수샘 옆 기도굴 위에 있는, 어릴 때 올라가서 놀던 기념 돌 위’에 올라가서 앞산 골짜기를 쳐다보았다. 앞산을 통해 감람산으로 다니는 길은 꼭 있어야 되는데, 길이 너무 경사져도 다니기 어렵고, 또 포클레인도 다녀야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기도했다. 그때 ‘앞산 골짜기’를 쳐다보는데, 하나님도 성자도 ‘답’을 주셨다. 구상을 보여 주셨다. 현재 만들어 놓은 대로 그 모습과 길이 보였다. 하나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길을 크게 내고, 흙을 더 파고 들어가서 절벽을 만들고, 폭포수를 만들자.” 하셨다. 즉시 알겠다고 손뼉 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구상을 그림으로 그렸다.

24. 그때 최고 좋은 돌이 있었다. ‘이 돌을 쓰면 아깝지 않을까?’ 하던 돌이 3개 있었다. 그중 두 개는 좌우에 세우는 돌로 쓰기 좋았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운동장이나 감나무 밑에 놓고 평판(平板)으로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과 성자는 폭포수 밑을 깔고 이 돌을 거기에 두어 폭포수가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이 돌은 ‘몸짱 여인이 해변에 엎드려서 일광욕을 하는 모습’같이 번질번질하고 넓적한 살색 호박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는 폭포수가 떨어지면, 거기서 씻고 놀게 하자고 하셨다. 그 말씀대로 선생이 손수 만들었다. 큰 돌 3개 중에 긴 것 두 개는 좌우에 세우고, 가운데는 보석같이 튀어나오게 ‘호피석’으로 박았다. 그리고 큰 돌 3개 중 나머지 하나인 <납작한 호박돌>은 폭포수 밑에 깔았다. 이 돌은 납작하고 ‘살’같이 번질번질 해서 앉아서 놀기에 좋다.

25. <제1폭포>를 만들고 20년이 지나 월명동의 인봉을 땀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무엇을 구상하셨는지 알게 됐다. <금단의 열매>다. <시대 신부 상징>이다. <끝내주는 숫자 6>도 거기에 있다. <숫자 6의 형상>이 아니고, ‘6개의 계단’이다. <6개의 계단>에 물이 흐른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자는 <제1폭포수> 중간에 소나무를 심으라고 하셔서 소나무도 심었다. 처음에는 그곳에 소나무를 심으면, 그 작은 폭포수가 그마저도 안 보인다고 했다. 또 가을이면 솔잎이 선녀탕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

자는 “심어야 된다. 안 심으면 안 돼. 따라와.” 하시어 그곳에 심을 소나무를 찾아다녔다. 해 그늘에 지방바위 위를 다니는데, 어두우니 잘 안 보여서 소나무를 밟게 됐다. 내가 밟아서 소나무가 넘어져 있었다. 고로 모두에게 오라고 하여, 그 소나무를 잡아당겼다. 이 소나무는 납작한 소나무였는데, 바위 위에서 크고 있었다. 뿌리가 바위에 안 박히고 납작하게 있어서 떼어 왔다. 소나무를 떼어 오면서 모두, “이리 쉽게 깨 온 술은 없다. 신기하다.” 했다. 처음에 이 소나무는 작았다. 심을 장소가 한 군데 있어서 거기에 심어 놓았다. 그때는 ‘해변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서 있는 모습’이었다. 심어 놓으니 모두 예쁘다고 했다. 그런데 나무가 작으니, 좀 더 컸으면 했다. 결국 커서 보니, 이제는 ‘초미니 스커트’를 입은 것 같다.

2. 20년 만에 ‘하나님의 작품’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는 2000년 만에 성경을 확실히 깨달은 것과 같다. 자연스럽고, 예쁘고, 아주 걸작이다. 아주 간단하게 ‘돌 4개’로 만든 작품이다. 심플하면서 추상적이다. 형상과 모양을 구상하고 그 구상이 드러나게 만들었다. 이 폭포수 작품은 ‘폭포수 위에 있는 신선술’과 같이 봐야 된다. <신선술>이 ‘동산’이다. 매치가 아주 잘된 ‘대(大)걸작’이다. 옆에 ‘상징 여인상 조각’이 있어서 더 돋보이게, 더 빛나게 해 주고, 깨닫게 해 준다. <신부탕, 선녀탕, 신선 장소>다. 또한 옆에 잔디성전이 있으니, 아주 풍치가 있고 비경이다. <자연석>으로 쌓아서 전체가 ‘한 바위’같다.

3. <하나님의 구상>은 다 ‘대걸작’이니, <신앙>도 늘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해야 ‘걸작 신앙’이 된다.

4. <하나님의 대걸작을 모르는 자>는 봐도 모른다.

5. <자기>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저마다 개성으로 ‘걸작’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물어보아라. 무엇이 ‘육적인 형상과 모양의 걸작’이고, 무엇이 ‘영적인 형상과 모양의 걸작’인지 물어보아라. <제1폭포의 사연>이 있듯이 있다.

6.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사연’을 찾아내고, ‘비밀의 작품’을 찾아내기다. <자기 신앙>도 그러하다.

7. <과거에 자기가 구상했던 것>과 <하나님이 구상하신 것>을 비교해 보아라. 모르고 자기 인생을 보면, 불만스럽고 보통으로 본다. 알면, 스릴과 기쁨과 흥분이다.

8.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주와 작품을 만들듯, 모두 만드는 중이다. 저마다 ‘자기’를 통해 만든다.

9. <선생을 모르고 보는 자들>이 선생을 얼마나 우습게 대했느냐. 모르고 대할 때는 하루에 70번씩 미친 자라고 했다. “저 청년을 봐라. 큰 자가 돼서 만나지도 못한다. 평생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기 힘들다.”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선생이 “모두 이때 나를 만나라. 앞으로는 못 만난다.” 하고 큰소리치며 이야기하면, 미쳤냐고 했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드시면, 인간도 작품도 모두 그리 귀하고 귀하다.

11.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알아주는 만큼 속 이야기를 해 주시고, 비밀을 알려 주시고, 도와주신다.

12. <다윗>이 왕이 되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줄 알았으면, 다른 목동들이 미리 다윗을 사귀었을 것이다. <다윗의 앞날을 아는 자>였다면,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는 것>이 그리 크다. <아는 자>는 벼슬한다. 영광을 누리고,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13. 매일 주께 배워라. 삼위께 배워라. 배울 자에게 배워라.

14. <깊은 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겠느냐. 알아도 말은 못 하고, 껌속말만 한다. <시대 껌속말>이다. 그것을 들어야 한다.

15. <기성들>을 보아라. <시대 껌속말>을 못 알아들으니, 고개가 아프게 하늘 구름만 쳐다본다. 그러다 ‘기다리는 신경성 병’이 걸렸다. 그 스트레스를 모두 ‘새 역사를 펴 가는 것’을 보며 막말하며 푼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생각

대로 안 되면, 손자들을 보면서 푸념하고 화풀이하는 격이다. <하나님의 시대 꺾속말>을 이야기하니, 그들은 죽을 때가 돼서야 “그런 것 같아요. 나 좀 좋은 데 가게 해 주세요.” 한다. 때 지나서 신부가 되겠느냐. 하나님은 ‘때’를 지키신다.

<2018년 5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회개하는 자들’을 그냥 두기보다, 용서해 줘야 속이 시원하시고 분노의 마음도 확 전환되어 기쁘시다. 그 대신 용서를 받았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행해야 된다.
2.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정한 날에 심판하시려 ‘말씀의 칼’을 갈고 계신다. 홀연히 그날이 돌아온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으니 어서 피해라. 가진 것을 해결해라.” 하시며 사람이 말로 하듯 절대 안 하신다. 다만, 조금 깨닫고 느끼게 해 주신다. 고로 깨달았을 때, 느낄 때 해야 된다.
4. 생명이 금방 죽을 지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도 한다. 고로 그대로 즉시 행하여 생명이 살기도 했다.
5. 보통 때에는 99%가 약간만 느끼게 해 주신다.
6. 자기 영의 차원에 따라 느낌도 다르다. 거의 <마음과 생각>으로, <영>으로 느끼게 전달하신다.
7. <사람>을 통해서나, <만물>로는 확실하게 보여 깨닫게 하신다.
8. <설교 때>는 사명자들을 통해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다. 제일 확실하게는 ‘사람’을 쓰고 말씀하시고, 혹은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9. 자기가 생활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속 시원히 행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은 ‘만물’로나 혹은 ‘사람’을 통해 ‘양심’으로나 혹은 ‘영적’으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
10. <신>은 ‘사람’이 아니다. 고로, 사람의 육과 같이 절대 통할 수가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 <사람>과 <짐승>이 절대 못 통하듯, <영>과 <육>이라 잘 안 통해진다. 그러나 영계에 가면, 사람의 육끼리 통하듯 <인간의 영>과 ‘삼위의 영’이 통하고, ‘천사’와도 통한다.
11. 영계에서 그 영이 능하게 이야기하던 자라도, 육계에서는 육끼리 통하듯 하나님과 안 통한다. 이를 보건대, <육>은 신과 잘 못 통한다. <육>은 ‘영’이 아니라서, 딴 세상이다.
12. 다만 <육>이 집중하면, 통한다. 집중하지 않으면, 못 통한다.
13. <신>과 통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느냐.
14. 대화해라. 고해라. 이야기해라. 백 마디 이야기 중에 ‘한 마디’라도 말씀해 달라고 하며 간구해라.
15. <육>은 삼위가 불러도 모른다. 삼위가 부르시기 전에 네가 삼위를 불러라. 훨씬 빠르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예리한 영이시라 우리가 속으로 불러도 듣고 아신다.
17. 먼저 불러라. 찾아라. 그게 쉽다.
18. 부르면, 대답은 ‘마음’으로 하신다. 그리고 ‘만물’로도 실감 있게 보이며 하신다.

19. 자꾸 외국어 외우듯이, 자꾸 해야 유능해진다.

20. 처음에는 자기 마음과 생각에서 ‘자기 의지’같이 느껴진다. 100번, 1000번씩 계속해라. 신과 통하기가 쉽지 않다.

21. 애인이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잘 통해진다.

22. 삼위를 절대 사랑하고, 삼위의 신부가 되어라. 그리하면 ‘1:1’로 잘 통한다.

23. <기도>는 일사천리로 자기가 하는 것이다. 계속 보내기만 하는 것이다.

24. <대화>는 한 마디라도 답을 받고, 그것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이다. 고로 기도와 차원이 다르다.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생각>과 <힘>이다.

2. <생각>을 못 하면, 식물인간이다. <생각>을 해도, 힘이 없으면 안 된다.

3. <생각>은 ‘뇌’에서 오고, <힘>은 ‘몸’에서 온다.

4. 아무리 <뇌와 마음과 생각>에서 힘을 쓰려고 해도, 몸에 <힘>이 없으면 안 된다.

5. <기계의 힘>은 ‘엔진’이다. <엔진>이 약하면, 주인이 아무리 무거운 것을 싣고 옮기려고 해도 안 된다.

6. <인간의 힘>도 ‘육체’라는 ‘엔진의 한계’대로다.

7. <정신>을 강하게 해도 ‘육체’가 약하면, 무거운 것을 못 옮긴다. <힘>이 있어야 능히 행하게 된다.

8. <생각>은 자꾸 생각해야 많이 하게 되고 유능해진다.

9. <힘>은 자꾸 운동하고 연마해야 빠, 근육(힘줄과 살) 등이 강해져서, 강하게 쓰게 된다.

10.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육의 힘>이 ‘정신과 생각’과 함께 약해진다. 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육의 힘과 생각들은 한계선 안에서 연마하기에 따라 그 능력을 엄청나게 더 발휘할 수가 있다.

11. 사람이 나이를 먹어 늙는 것은 아무리 얼굴과 몸을 가꾼다고 해도 못 당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제하고 관리하면 엄청나게 젊게 되고, 젊은 얼굴과 몸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도 그러하다.

12. <인생 100년>이 한계라면, 누구나 그 나이가 되면 끝난다. 그러나 관리하기에 따라 70세까지 살 자가 90세까지 살기도 하고, 80세까지 살 자가 100세까지 살기도 한다. 주관권 안에서 더 젊게, 더 건강하게, 더 힘 있게, 생각이 더 청청하게 사는 것은 ‘관리와 노력’으로 좌우된다. 그 차이는 10년, 20년, 혹은 30년까지 차이가 있다.

13. <새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녹슬고 시든다.

14. <자기 관리>로 인해 ‘삼분의 일’정도 운명이 좌우된다.

15. 흔히 “젊을 때 관리했어도, <뇌>는 나이를 먹은 만큼 늙는다.” 하지만, <뇌>도 ‘관리한 자’는 나이를 먹어도 상관 없다.

16. <나리와 상관없이 생각 관리를 한 자>는 40대 때보다 60대, 70대 때 더 뛰어다니기도 한다.
17. 20대, 30대라도 관리를 안 하면 ‘옥토 밭’이 ‘잡초 밭’ 되듯 한다.
18. <늙는 것>도 관리를 안 하면, 30~40대가 50대 같다. <뇌>도, <생각>도 그러하다.
19. <새 집>도 쓰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표가 나게 헌집이 된다.
20. <월명동>은 개발하였으니 ‘새것’이다. 그러나 3년만 관리를 안 하면, 잔디밭에도 잡초가 나서 ‘잔디밭’이 아니라 ‘풀밭’같이 된다. <조경>에도 풀이 나고, <운동장>도 ‘풀밭’이 된다. 해마다 잡초 씨가 날아와서 나기 때문이다.
21. <새것>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헌것’이 된다.
22. 사람도 <생각 관리>, <힘 관리>, <생활 관리>다.
23. 사람은 <매일, 매시간 관리>다.
24. 새벽 1시에 일어나다가, 하루는 관리하지 않고 놓아두니 5시에 일어나게 됐다. 관리 안 하면, 사람은 바로 무너난다.
25.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는 사람이나 짐승 등 살아 있는 존재들이다.
26. <생각>은 ‘생각’이 관리하고, <몸>은 ‘몸’이 운동하며 활동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
27. <젊은 자들>이 가만히 있고 활동을 안 하면, 바로 ‘생활 활동’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 <거리>도 다니면서 걷고 보고 해야 ‘뇌’도, ‘생각’도 보고 듣게 되니 발달되고, 힘도 줄어들지 않고 관리가 된다.
28. <교회>에도 잘 안 나오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생활 활동’ 범위가 좁아진 것이다. 그러다 <인터넷으로 설교를 보는 것>도 제시간에 안 보고 후에 보게 되고, 그러다 빼먹고 안 보게 된다. 그러면 끝장이 나서 실패한다.
29. <교회에 오는 자>는 멀어도 다닌다. 물론 힘도 들고 각종으로 투자하며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육>도 성공, <영>도 성공했다.
30. 관리하면, 한계선 안에서 <늙는 것>도 ‘삼분의 일’은 더 젊게 살 수 있고, <생각>도 ‘삼분의 일’ 이상은 더 젊게 할 수 있고, <힘>도 ‘삼분의 일’ 이상은 더 젊게 쓸 수 있다.
31. <생각>은 영계로 가서 삼위와 일체 되면, ‘신적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첨단 생각’을 하게 된다.
32.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세에 가깝게 되었을 때도 밧모섬에서 기도하여 ‘영의 생각’으로 계시록을 썼다. 젊었을 때도 못 쓴 것을 그때 썼다.
33. <생각>은 ‘힘’보다 더 젊게 할 수 있다.
34. TV를 보면 60세, 70세 나이 먹은 자들이 관리해서 40세 정도로 보인다. 관리하면, ‘삼분의 일’ 정도 더 젊게 할 수 있다. <건강>도 그러하고, <환경>도 그러하고, <존재물>도, <생명>도 그러하다.

35. <집>도, <건물>도 관리하면 배(倍) 이상 오래간다.

36. <돌>과 <나무들>은 별로 관리하지 않아도 크고 성장하여 그 무게를 지탱한다. 그러나 <생명들>은 ‘관리’해야 된다.

37. <크는 자들>도 관리를 안 하면, 바로 표가 나게 된다. 피눈물 나게 얻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진다. 잃는다. 놓친다.

38. 얻는 데 100%, 관리하는 데 100% 해야 제대로 쓰게 된다.

<2018년 5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관리 안 하면, 사고 나서 죽는다.

2.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관리다.

3. 관리 안 하면, 한 번에 무너난다.

4. <받은 것 보관, 관리>다.

5. <매일 관리>다. <생각 관리>다. <보호>다. <귀히 여기는 관리>다.

6. 관리 안 하면, 사탄에게 뺏긴다. <이중, 삼중 관리>다.

7. 얻는 것만큼 ‘관리’가 중요하다.

8. 얻을 때 10년, 20년 만에 얻은 것도, 관리를 안 하면 순간 뺏기고 잃는다.

9. <관리의 지식과 지혜>다. <힘>이다. <생각>이다.

10. <삼위와 같이 관리>다. <신적 관리>다. <양단 관리>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리다.

11. <생명들>도 관리가 안 돼서 ‘일생 한 번의 기회로 온 자들’을 뺏긴다. 교육하는 자의 책임, 전도자의 책임이다. 뺏기고서 그리 울며 “심정 탄다.” 한다.

12. <예정>은 거의 없다. <관리 책임>이다.

13. <교회에서 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 교회의 책임과 개인 책임, 교역자 책임이다.

14. <하나님 선(線)>에서 관리가 돼도, <인간 쪽 관리>가 돼야 된다. 두 편에서 하면, ‘완전한 관리’가 된다.

15. <받은 것, 관리>다. 다시 받기는 어렵다. 더는 없다. 받은 것 딱 ‘하나’다.

16. <이성 관리>다.

17. 어떤 목사는 10년 동안 기도해 주고 죄를 대신해 줬는데도, 마지막 몇 달을 남기고 탄 자에게 몸을 줬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모두 실망하였다. 사랑으로 휴거됐는데, 이성에게 사랑을 뺏기면 휴거도 뺏긴다. 그런 자는 가상 화폐 1억 원어치를 샀다가, 천 원에 팔아 버린 것과 같다. 휴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도 그리했다. <사랑을 배신한 죄>다.

18. 관리를 못 하면, 평생 한이 된다.

19. 삼위가 키웠는데, 원수 사탄에게 졌다. 원수 사탄을 못 이기고 천국에 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확인할 것도 없다.

20. <의>를 행하여 이겨야 구원받고 휴거되어 천국에 간다.

21.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하시기를, “<이성>으로 개인도, 시대도 망한다.” 하셨다.

22. 또 성령님께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휴거된 영>도 이성으로 타락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고 배신한 것이니 쫓겨난다. 다시 해야 된다. 그때는 가중된 조건을 세워야 된다.” 하셨다.

23. <한 번 빛을 받고 타락된 자>와 <빛을 안 받고 타락된 자>는 다르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였다.

24. <한 번 빛을 받은 자>란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듯 하늘과 사랑을 맺은 자다. <왕과 결혼한 자>가 다른 자를 사랑하면, 형벌을 받게 된다.

25. <휴거된 자>는 6000년 구원역사의 목적대로 삼위와 결혼한 격이다. 그런데 <이성 관리>를 못 해서 많은 자들이 휴거됐다가 떨어져 그 영들이 희망을 잃고 땅에서 괴로워한다. 상상도 못 하는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 땅에서는 괴로워서 못 산다. 그 괴로움이 ‘육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26. 이성뿐 아니다. <신앙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휴거 300>선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 거기서 자기가 계속 안 하니, 휴거 선에서 내려와서 보통 영이 되어 산다. 다시 휴거되려면 3년, 7년, 10년씩 걸린다.

27. <가치를 몰라서 휴거를 뺏긴 자들>은 본인의 욕이 거의 안다.

28. <휴거 1000선까지 간 자>는 마치 ‘성자바위’같이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고, 눈이 와도 얼어 죽지 않고 영영하다. 또 <월명동의 앞산과 뒷산>같이 튼튼하다.

29. <주>도 ‘휴거’를 두고 매일 그리도 기도한다.

30. <가치를 모르는 자들, 소홀히 대하는 자들>은 자기가 책임을 하게 둔다. 삼위도 주도 그 엄청난 것을 두고 그들에게 간청하고 사정하고 구걸하듯 하지 않는다.

31. 귀히 여기고, 감격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매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32. <휴거된 자들>을 보아라. <물질 축복>도 거기에 해당된 만큼 준다. <명예>도 준다. 때가 되면 준다. 다 약속하였다.

33. 지구 세상에 ‘휴거된 자’같이 큰 자는 아예 없다. <휴거>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다. 더 이상은 없다.

34. <휴거된 자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제일 가까워서 사랑하며 산다.

35.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보다 ‘휴거된 자가 가진 것’이 더 크다. 영원히 황금성 천국을 차지하고 산다.

36. 지금 지구 세상의 것을 다 줘도, ‘남은 인생’밖에 더 사냐. 고로 <지구 세상을 다 받고 사는 영광>보다 ‘휴거되어 사는 영광’이 비교도 안 되게 크다.

37. <휴거된 자>는 영계의 어디를 가나 ‘왕’으로 취급한다. 영계에서도 휴거된 자를 보기가 그리 어렵다. 삼위 다음으

로 보기가 어렵다.

38. <휴거된 자>는 권한도 있고, 또 <휴거된 자>가 말하면 삼위가 들어주신다.

39. “<휴거>가 귀하다.” 하고 그리 이야기해도 귀히 여기지 않은 자는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천사들도 안 알아준다.

40. <휴거 시대>에는 ‘휴거’를 최고로 알아준다. 땅에서는 천 년 동안이다. ◎ 이어지는 잠언은 내일 마지막으로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5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4000년씩, 2000년씩 믿었어도 휴거가 안 되면 ‘미꾸라지’다. <용>이 안 된 격이다. 애벌레 격이다.

2. <부활>이다. <휴거>는 ‘부활’ 같다. 고로 완전히 딴 자가 된다.

3. <휴거된 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신다. 휴거 선에서 떨어지면, 다른 자에게 손대서 휴거시키신다.

4. 성자께서 주고 가신 선물 중에 여러 가지 작품이 있다. 모두에게 보여서 같이 쓰게 한다. <월명동>도 그중 하나이고, 다른 것도 있다. 가치를 모르니, ‘가치를 아는 자, 눈을 뜨고 보는 자’와만 쓰는 것도 있다. 보여 줬어도 가치를 모르는 자는 거기서 뺐다.

5. 선생은 매일 삼위께 고맙다고 하고, 이야기한다.

6. 한번은 하나님께 그렇게도 고맙다고 하며 좋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천국에 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하니,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 놓았다.”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직접 만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5년간 매일 기뻐하며 기도했다.

7. 신앙이 변한 생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인 어느 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내가 준 작품을 생각해.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하셨다. 고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작품을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사라졌다. 그것은 ‘휴거 작품’이다. 삼위가 신경 써서 만드신 작품이다.

8. <삼위가 주신 선물>을 귀히 여겨야 된다.

9. 관리를 잘하면, 받았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된다.

10. <생명 선물>도 처음에 받았을 때는 몇 년 동안 속 썩이고 애태웠다. 계속 관리했더니, 지금은 계시를 받고 순회다니며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준다. 선생이 할 수 없는 일도 ‘내 몸’이 되어 해 준다.

11. <관리>가 힘들어도 해 주어라. 끝까지 해 주기다.

12.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관리해 주니, 결국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모셨다.

13. 넘어지면, 다시 관리다.

14. <관리>는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한 번에 치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관리>다.

15. 관리하면서 자신도 배우고 얻는다.

16. 매일 생명을 관리하니 불가능했던 자가 결국 가능하게 되고, 매일 행하며 기적을 일으켰다. 그 생명이 얼마나 바쁜 자이고 하니, 마치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자같이 바쁜 자다. 선생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자를 시켜서 관리했다. 어느 때는 시간이 안 되니 관리자가 2시간 동안 가서 10초 만나고 말씀을 전해 주고 왔다. 그 생명은 10초 동안 말씀을 듣고 갔다. <한마디 생명의 말씀>이었다. 악수하면서 그때 전했다. 그 말씀을 듣고 뛰니 표적이 일어나고 경기에서도 이겼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니, 지금은 본인이 평소에도 기도하고 뛰면서 말씀도 생각한다고 했다. 하나님을 부르며 통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기적을 보게 해 놓았다. 그는 약 3년 전에 연결됐으나, 관리가 안 되어 끊어진 자였다. 다시 목숨 걸고 관리하니, 됐다.

17. 10초 동안 말씀해도 성공했는데, 어떤 자는 그리 많은 말씀을 전해 주고 관리했어도 삼위도, 주도 모른다. 3년을 교회에 다녔어도 모른다. 재미로 다녔다고 했다. 교역자, 강사들이 문제다. 교회마다 제발 제대로 개인 면담하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라. 그러지 않으니 2년, 3년을 다녔어도 모른다.

18. <교역자, 관리자>가 ‘허수아비’다. 먹을 것을 사 주고, 그냥 분위기로 관리해서다. 이 같은 관리는 ‘개나 곤충을 관리하는 법’이다. <사람>은 ‘개’ 같은 동물이 아니다. 메뚜기나 귀뚜라미가 아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와 행하는 일’이다. 전능자를 알게 해라. 깨우쳐 주어라.

19.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교역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교체함을 깨달아라.

20. 교회마다 ‘자기가 전도한 자들 관리’를 제대로 해라. 모르니 결국 나간다.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나간다. 일 년에 수천 명이다.

21. 관리를 잘해서 안 나가야 부흥된다.

22. <자기 관리>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자>는 절대 ‘타인 관리’도 못한다.

23.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며 깨닫고 행해야, ‘타인 관리’도 제대로 해 준다.

24. 각 교회마다 ‘교육국장 같은 자’와 ‘교육 센터’를 꼭 세우고 ‘말씀 관리와 교육’을 하게 해라. 이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교육하게 하여라. 교회마다 남녀 2명을 세워라. 각종으로 교육시키고, 할 일을 파악하고 가르쳐라.

25. <관리>란 꿰뚫어 보고, 꿰뚫어지게 하는 것이다. 뚫을 관(관통), 관통이다.

26. 터널 1000m를 뚫는데 999m만 뚫으면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굴’밖에 안 된다.

27. <관리>도 꺾어지게 해야 된다.

28. 뚫어야 된다. <뚫는 관리>다.

29. <과일 뚫기 관리>다. 뚫어야 기쁨과 흥분이다.

30. 절벽을 올라갈 때 누가 못 올라오고 서 있으면, 손만 순간 잡아 줘도 잘 따라온다. <순간 관리>로 천 리 길도 잘 따라온다.

31. <붙여서 끌고 가는 관리>도 있다. <한동안 들고 가는 관리>다. <양을 끌어안고 가는 관리>다.

32. <자기가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관리>도 있다.

33. <서로 관리>도 있다. 상대도 좋아서 서로 관리한다.

<2018년 5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글자 한 자>를 써 놓고 잘 썼는지 확인이다. <하는 일>마다 이같이 해야 된다.
2. <행해 놓고 확인하는 것>보다 ‘행하면서 확인’이다.
3. 어떤 것은 행해 놓으면,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예 행하면서 확인해야 된다.
4. <운전을 할 때>도 보면서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길을 다 간 후에 확인하면, 그때는 이미 딴 길로 가고, 사고를 낸 후다.
5. 할 때 아예 잘하여라.
6. <몸짱>보다 먼저는 ‘영의 짱’이다. <몸>은 두 번째다. 먼저 <영>을 만들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육>을 만들기다.
7. 항상 ‘근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기다.
8. <핵>을 먼저 만들고, 해결하기다. <대상>은 그다음이다.
9. <자기>가 ‘핵’이다. 그다음은 ‘대상들’이다.
10. <그때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핵’이다.
11. <먼저 할 일>은 먼저 해야, ‘다음 일’도 순서에 맞게 하게 된다.<먼저 할 일>을 먼저 안 하고 순서를 바꿔서 하면, 시간이 안 맞는다.
12. 길을 나서기 전에 ‘먼저 짐 싸기’다. ‘먼저 옷 입기’다. <다음 것>은 아직 시간이 있다. <지금 앞에 놓인 일>을 먼저 하기다.
13. 사람에게는 ‘신같이 알고 살아야 할 것들’이 많다. <알고 행할 일들>이다.
14. <전체>는 ‘뜻’을 위해 보여 주었으니, ‘뜻’만 알면 된다.
15. <꿈에 보인 것>도, <낮에 보인 것>도, <만물 계시>도 모두 ‘뜻’이 중하다. <뜻>을 위해 ‘여건’을 보인 것이다.
16. 말씀을 읽어도, 보아도, 들어도, 필사를 하여도 ‘뜻’을 모르니, 하던 것이나 하게 된다.
17. 가령 “이때가 중한 때다.” 하고 말하면, 이 한마디 말 속에 ‘큰 뜻’이 들어 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소수였다. 이같이 <뜻>을 모른다.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자도 없었다. 성령님이 ‘주의 영’과 함께 깨닫게 한 자는 알지만, 아주 소수다. 왜 소수인지 아느냐? 할 것을 안 했기 때문이다. <뜻>을 모르면, 듣고 좋아해도 그때뿐이다.
18. <하나님의 인봉된 말씀>을 푸는 것과 같이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 <푸는 자>가 ‘주인’이다.
19. <문제>를 쫓으면, ‘답’을 찾아야 된다.
20. “이때가 중하다. 이때가 황금기다.” 한 것은 ‘답’이 아니다. 무엇을 두고 말했는지 ‘뜻’을 풀어야 된다. <휴거 때>는 ‘휴거’를 두고 말했다. 그때도 ‘뜻을 알고 깨달은 자’만 휴거됐다. 그리고 또 있었는데, 이미 지나갔다. 원하기는 수만 명이 원하고 애를 태웠지만 뜻을 모르니 ‘깨달은 자, 소수’만 했다. 소수는 ‘10명 안팎’이다.

21. <주의 마음>을 깨닫기가 그리 어렵다. 만일 깨닫기 위해 다니엘같이 결심하고 기도하고 주께 물었으면, 바로 알려줬을 것이다. 성경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그런데 안 하니, 해 줄 필요가 없다.
22. <주>는 ‘실체 존재자’라서 실체로 해야 되니, <시대 십자가>를 지며 10년 동안 행했다. 상대방에게 특권을 줬는데 안 하니, 이제는 때가 되어 장맛비가 끊어지고 주권이 넘어가서 그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
23.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여도, 그때에 ‘제일 좋은 것’도 있다. 하나님은 그리 역사를 펴셨다. 그러니 아무도 몰랐다. 세상이 악하니, ‘좋은 계절’에 안 하고 ‘겨울’에 한 격이다.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냉랭하여 아무도 없으니, 그때 하셨다.
24. 고난의 때,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핵 역사’를 했다. 아무도 모른다. 잔칫날 방해할 것을 알고 탄 날에 잔치한 것이 아니다. 그때 할 일을 하면서 논밭에서 잔치하게 되니, <그때 그 일에 참여하는 자>만 알고 한 것이다. 어떤 일은 여기서 반대하니, 탄 데서 했다. <복음의 역사>는 다양하게 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이같이 했다.
25.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게 하면 모른다. 소경들이니 안 보이게 하기 쉬운 것이다. 소리가 안 나게 하면 된다.
26. 잔치하려고 ‘돼지’를 사러 갔는데 반대자들이 알고 안 파니, 돼지를 안 사고, ‘소고기’를 사서 소리 없이 잔치한 격이다. 이같이 하나님은 주와 함께 ‘세상 소경들’이 모르게 소리 없이 하시어 70년 만에 ‘새 역사의 핵’을 끝내셨다. 이제는 ‘시대 택한 자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며 역사를 펴 나가면 된다.
27. 하나님은 ‘한다는 때’에 안 하시고, ‘준비할 때’ 하신다. 항상 전에 하신다.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하신다.
28.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먼저 하셨다.
29. <잔칫날>이 되면, 순간 20~30분 만에 예식을 하고, 나머지는 각자 먹을 것을 먹고 돌아간다. <잔치>도 ‘옛 식’으로 하면, 종일 한다. <새로운 식>으로 하면 순간 30분 만에 예식하고, 순간 식사하고 ‘한 시간’ 내에 다 끝난다. 하나님은 <섭리사 휴거 잔치 역사>도 ‘새 식’으로 하셨다.
30. <육>에 넣으면 못 할 줄 알았으나, <육>으로 못 하니 ‘영적’으로 더 집중하고 결심하고 했다. 고로 <하나님의 최고 뜻을 이루는 일>에만 집중하게 됐다. 실속 있게 ‘내적’으로만 한 것이다.
31. <혼인 잔치>는 ‘신부’만 있으면 한다. <하객>이 한 명도 없어도 <신부 하나>만 있으면 되듯이, 휴거도 ‘휴거될 준비가 된 자’만 필요했다. 그리고 <신부로 단장한 자들>과 함께 ‘내적 잔치’만 했다.
32. <이단들>은 ‘소문 잔치’만 하고, <기성들>은 ‘기다리는 희망 잔치’만 했다.
33. <이단 종교>에는 주인인 ‘신랑’도 없고, 그의 대상인 ‘신부’도 없다. <휴거>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들에게 ‘어떻게 휴거가 되는지’ 물어보면, 역시 한 족속의 이론을 주장할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섭리사에서 은밀히 행하시기가 더 좋았다.
34. <기성>은 ‘희망’으로만 기다리니 조용해서 좋았고, 또 눈보라와 비바람이 치는 때였으니 그들이 몰라서 좋았다.
35. 하나님은 ‘큰일’은 은밀히 하신다. 고로 이미 했어도, <모르는 자>는 100년이 가도 모르고, 1000년이 가도 모른다. 세상을 보아라. 저 집에서 뭘 하는지 아느냐. <아는 자>만 안다. ◎ 나머지 잠언은 내일 더 전해 주겠습니다.

<2018년 5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역사 40년>을 펴 오면서, 시대 십자가를 저 주고 그때 ‘핵, 휴거 역사’를 하고 할 것을 다 했다. 이제 뺏기지

만 않으면 된다. <영>은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사니, <육>만 땅에서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살면 된다.

2. 농사를 못 짓게 하려고 반대자가 땅을 안 파니, 다른 자를 시켜서 농사를 다 짓고 창고에 넣어 놓았다. 고로 이미 농사를 다 짓고 창고에 넣어 뒀어도, 반대자는 모른다.

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말하지 않으셔도 자기 일을 다 하고 가신다.

4. <가정>에서도 서로 안 통하면, 자기만 알고 할 일을 한다. 안 통하면, 10년을 했어도 모른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서로 교파가 다르고, 담을 쳐 놓고 사니 모른다. 그들 중에 택한 자가 와서 알고는 "성경에서 도적같이 와서 한다고 하더니 실체네." 했다.

5. <부모>도 결혼만 반대하지, 후에 아기 낳고 살면 반대해도 헛일이다. <시대>가 이러했다.

6. 유대 이스라엘 민족을 보아라. 지금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구약의 약속을 기다린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녀 역사>가 변창해 갔어도 메시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한다. 하나님이 '양심'으로 깨우쳐 주는데도 그리하느냐. <이 시대>도 그러하다.

7.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막고 악평하고 불신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치고 심판하셨다. 결국 그들은 그 행위대로 운명이 결정되어 <악의 몸>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자가 되었고, <배신자의 운명>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자가 되었고, 어떤 자는 <음모자의 몸>으로 살기 위해 태어난 자가 되었다.

8. <육신의 고통>은 '육신이 살아 있을 때'까지이지만, <영>은 영원히 고통받으니 그보다 10억만 배는 더 고통이다. 기약도 없다.

9. 힘들어도 열심히 해라. 떠난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운다.

10.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했는데, 빈 몸으로 못 가느냐. 끝까지 전심으로 하여라. <황금성 천국>을 뺏기지 말아라.

11. <휴거>를 귀히 여기고, <삼위와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안 뺏긴다.

12. 휴거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일인지 알아라.

13. 신경을 안 쓰다 휴거를 뺏기면, 7년, 10년씩 조건을 세워야 된다. 어떤 자는 기회를 놓치고, 10년 동안 애를 쓰고 울면서 다시 조건을 세웠다. 때 놓치면, 이리 힘들다. 그 때는 순간 지나간다.

14. 겪은 자는 뼈가 녹고, 뇌신경이 저리고 쭈시는 고통을 받으며 했다.

15. 안일하면, 지옥을 날기까지 한다.

16. <자기를 중시하며 모르고 산 자들>도 역시 7년, 10년씩 고통을 받는다.

17. 귀한 자, 귀히 쓰이기다.

18.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하면 모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면 기뻐 뛰면서 하게 하신다. 성령님께 한마디 말해 달라고 하니 말씀해 주셨다.

19. <주가 하는 일>을 반대하면, 이야기를 안 해 주고 한다. 아예 일생 동안 모르게 한다.

20. (성령)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는 알릴 필요가 없다.

21. <모르는 자>는 ‘잔치’를 해도, 관광 단체가 식당에 와서 식사하는 줄 안다. <신부>가 드레스를 벗고 청바지를 입고 다니니, ‘가이드’로 안다.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들’이 반대하니 안 가르쳐 주고, 그들이 고통받게 한다. 이같이 이 시대가 그러했다. <시대 신부들>만 부르고, <하나님의 시대 잔치>를 했다.

22. <끝까지 안 간 자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나고, 세상으로 가서 그리도 고통을 받는다.

23. <시대 따르는 자들을 막고 반대한 자들>은 거울이 되어 그들의 꽃이 지니 앙상한 가지만 남고 끝났다.

24. <섭리사 시대 신부들>은 꽃보다 ‘열매’다. 고로 나무마다 나뭇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매가 열어 풍족하다. 이러함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계절같이 오고 간다. <반대자, 악평자들>에게는 일생 동안 거울만 오니, 그들이 사는 곳에는 꽃도 열매도 없다.

25. 하나님은 공의대로 대해 주신다. 고로 자기 행위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산다.

26. <시대 따르는 자들>만 그 세계에 속해 잔치하고 즐긴다. 지구 세상의 최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역사’뿐이다.

27. 이제 <시대를 막고 반대한 자들>에게도 때가 왔다. 그들에게는 ‘사막과 광야 길’이 연속된다. 자기가 스스로 간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막고 반대했으니, ‘자기가 죄지은 것’을 다 받고 살아야 된다.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을 잘못 보면 ‘그 시간에 할 일’을 못 하듯 <사람>도 잘못 보면 계획했어도 그 사람을 못 쓰게 되느니라. 고로 항상 제대로 보아라.

2. 사람은 ‘보는 데’서 생각이 결정되어 그로 인해 대함도, 행함도 달라지느니라.

3. <시각의 판단>이니라.

4. <보는 것>을 잘못 보면, ‘판단’도 잘못되나니, 고로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봐야 되느니라.

5. 유혹자도, 불의한 자도 ‘눈’을 속여 보이느니라.

6. 보는 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듣는 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행위>로, <말>로 모두 확인하고 판단해야 할지니라.

7. 유혹자는 ‘옳은 말’도 하고, ‘그릇된 말’도 하니라. 고로 분별을 못 하게 해서 유혹하나니, ‘말의 내용’과 ‘행위’를 모두 보고 <속이려는 목적>을 알지어다.

8. <타인>이 속이거나 유혹하지 않아도, <자기>가 모르면 속느니라. 그러니 역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며 행할지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동행하는 자>는 무지에서 벗어나고, 악한 자들의 속임에서 벗어나리로다.

10. 저마다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무지’로 행하니 속게 되고, 해를 받느니라.

11. <확인>은 ‘자’와 ‘저울’이니, 저마다 <확인>이라는 ‘자’와 ‘저울’을 가지고 다니며 늘 재어 보고 달아 보아라. 그리함으로 유혹자에게 속지 말고, 당하지 말지어다.

12. <지혜>는 ‘확인’이니라.

13. <행할 때>는 ‘제때’ 행해야 그 시간에 해당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되느니라.

14. 매일 <제때, 제시간>에 행하여 그 시간에 해당되는 일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다음에 오는 것도 <제때, 제시간>에 행하여 실제로 확인하여라.

15. 제때 하면, ‘시간’에도 속지 아니하리라. 마치 운동경기 때 운동선수가 ‘10분의 1초’까지 다투듯 해야 되느니라.

16. <영적 세계, 영감과 생각의 세계>에서는 ‘순간 몇 초’ 안에 깨닫고 행하기까지 해야 되느니라.

17. 순간 깨닫고 결정한 것으로 인해 ‘성’을 쌓게도 되느니라.

18. <월명동 자연성전>도 하나님이 ‘순간 몇 초’ 동안 보여 주시고 “나의 구상이니 이같이 하여라.” 하시어 그때 순간 깨닫고 결정하여 현재 모습으로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순간 몇 초’ 동안 보이시고 판단하게 하시어 <천 년 동안 가는 하나님의 시대 자연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느니라.

19. <순간 포착>하는 그 시간은 ‘전체 시간’보다 귀하니라.

20. <순간의 기회>를 위해 10년, 20년을 기다리기도 하니, <그 순간의 기회>가 왔을 때 잘 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늘 연습하고 ‘실전’같이 행해야 되느니라. 그래야 <순간의 기회>가 닥쳐도 그 순간을 포착하여 잘 행할 수 있느니라.

21. <기회>는 ‘순간’에 오고 가지만, <얻고 쓰는 것>은 ‘육신 일생’ 동안 쓰고 어떤 것은 ‘영원’까지 쓰느니라.

22. 긴긴 세월 그렇게도 기다렸던 희망이 때가 와서 ‘순간’ 거쳐 가는데도 못 하는 자들이 있나니, 어떤 자는 마음은 원이로되 ‘순간’ 행하지 못하여 기다렸던 희망이 그에게서 지나가 버리느니라.

23. 운동선수가 평소 때도 늘 몸을 연단시켜 행해야, <순간의 기회>가 왔을 때 포착하여 행할 수 있느니라. 운동선수 뿐 아니라, 모두 <자기 삶>을 놓고 이같이 해야 되느니라. 행할 때마다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초를 다투듯 행하며 사는 삶>이니라.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할 일>을 놓고 연습도 하고, 생활 속에서 늘 ‘실전’같이 생각하며 행해야 <행해야 될 일>이 왔을 때 착오 없이 하게 되느니라.

2. <행해야 될 일>이 오면, 저마다 자기 차원대로 하게 되느니라.

3. 사람은 다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있느니라.

4.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이 있어도 제대로 안 쓰니, 제대로 안 되어 해(害)가 되느니라.

5. 행할 때는 <행한 일>로 인해 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멀리까지 보고 행해야 이상이 없느니라.

6. <현재>만 보고 하면 <현재>는 괜찮은데, 그 일로 인해 <미래>에 문제가 생겨서 해를 받게 되나니, 항상 멀리까지 보고 행하여라.

7.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 하나만 보고 행하나니, 그리함으로 ‘현재 행한 일’로 후에 당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항상 ‘미래’까지 보고 행하고, 삼위와 주와 같이 행하여라.

8.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 ‘현재’에서도 받고, ‘미래’에서도 받게 되나니, ‘현재’와 ‘미래’- 이 두 가지를 항상 보고 행할지이다.
9. <현재만 보고 행하는 자>는 ‘오른발이 디딜 곳’만 보고 가는 자와 같아서, ‘왼발이 디딜 곳’이 없으니 발을 헛디뎠 떨어지듯 하니라.
10. <현재, 육신만 보고 행하는 자>는 <미래, 영>에게 문제가 생겨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느니라.
11. <육>만 생각하고 현재만 위해 살지 말지이다. <자기 영>도 ‘자기 것’이니, 자기 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느니라. <자기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느니라.
12. <자기>도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도 생각하고 행할지니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는 차를 타고 가는데 <사랑하는 자>는 차를 못 타서 애태우며 울고 탄식하게 되느니라.
13. <자기>도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자기 가정>과 <자기 민족>과 <세계>와 <삼위>까지 생각하며 행해야 문제가 없느니라.
14. <그다음 시간에 할 일>이 있는데 일이 잘된다고 그 시간까지 하면, <그다음 시간에 할 일>을 못 하고 놓치게 되느니라. 그러니 ‘하나’밖에 못 해서 손해이니라.
15. 하나님은 항상 ‘제때’에 그 일을 하시나니, 정하신 대로 ‘때가 된 것’을 해 오셨느니라.
16. 하나님이 “주를 보낸다.” 하신 때가 지났으면, 하나님은 이미 ‘그 때’에 그 일을 끝내신 것이니라.
17. 가령 <행사 시간>이 지났으면 그 행사는 이미 끝난 것같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때가 지났으면 그 일은 이미 행하신 것이니라.
18.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아는 자, 한 명’을 가지고 행하시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야 행하신 것으로 아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하셨어도 모르느니라.
19.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대로 ‘그 한 명’을 도적같이 보내시어 행하시니, 처음에는 ‘삼위’만 알고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크고 성장해서 성경을 이뤄야 자신도 알게 되고, 따르는 자들도 알게 되느니라.
20. <주>가 복음을 전해도 넓고 넓은 지구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나니, 한 시대가 가야 알게 되고, 또 그가 전한 복음 안에 들어와야 알게 되느니라.
21. <주를 아는 것>뿐 아니라 만사에 모든 것도 그러하니라.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길>은 가지 않으니, 눈도, 귀도 멀어 사는 것이니라.
22. <구시대>도 그러하니라, 같은 세상에 살아도 말 안 하면 모르는 것이니라. <아는 자들>은 알고 따라가서 안 보이니, 모르느니라.
23. 하나님이 ‘새 시대에 자신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해 행하셨어도 <새 시대>를 불신하고, 부정하고, 눈과 귀를 닫고, 아예 생각과 인식을 ‘불신’으로 굳히고 사니, 모르느니라.
24.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줘어도, <본인>이 듣고 시인하며 하나님을 깨달아야 알게 되나니,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거친 자만 알게 되느니라.

25. <혼인의 청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 신부>와 <신랑>만 알고 그 뜻을 이루고 가느니라.
26.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어, 그때가 되면 택한 자들을 오게 하시나니,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니라.
27. <영원한 새 시대 구원>과 <신부로 변화되는 영광의 자리>는 ‘그것에 합당한 자’라야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나니, 이 시대는 시대가 악함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적으니라.
28.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보시고 택하실지 모르니, 진실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니라.
29. 시장에서도 누가 ‘새 물건’을 찾고 있는지 모르니, 물어보고 그가 “새 물건을 찾고 있다.” 하면 물건을 파는 자가 잘 설명해 주고 그에게 물건을 파나니, 고로 물건을 산 자도 자기가 찾는 ‘새 물건’을 사고 좋아 기뻐하느니라.
30. <새 시대를 찾고 기다리는 자>를 찾겠다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고로, 쉽게 찾게 되느니라.
31. <새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새 물건을 찾고 기다리는 자들>을 찾아 담대하게 권하여라.
32. <말>을 잘해야 실체 그대로 잘 전해서 ‘듣는 자’도 알게 되나니, <말의 능력과 지혜>이니라.
33. <말>을 잘 못 해서 시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기도하고, ‘시대 복음을 잘 전하는 자’에게 인도해 주면 되나니, 그러면서 자기도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되느니라.
34. <옛것을 장사 지내는 것>은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 사명대로 같이 해 주면 쉬우니라.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잘하는 것>이 ‘성공’이니라.
2. 잘하는 것에 기쁨과 희열과 성취감을 느끼며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실수하여 해를 받지 않고, 잘하게 되느니라.
3. <기계>도 ‘결합해야 될 곳’은 백지장만큼도 착오 없이 만들어서 딱 맞게 끼워 넣어야 하듯이, <생활>도 그같이 하나 하나 착오 없이 잘해야 되리다.
4. <현재>와 <실체>를 딱 맞춰서 해야, 착오가 없게 되느니라.
5. <기계>는 결합이 잘됐어도 그중 하나가 제대로 맞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 없나니, <사람이 행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6. 고생돼도 아예 처음부터 잘해야 후에도 계속 잘되고 편하나니, 고생된다고 처음에 제대로 안 하면 후(後)에 결국 문제를 당하게 되느니라. 그때서야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힘들고 고통을 겪게 되느니라. 전쟁터에서 적의 눈에 안 띄게 행하듯, 아예 문제가 눈에 안 띄게 행할지니라.
7. <급하게 한 것>은 꼭 ‘다시 확인’해야 될지니라.
8. 자기 생각으로 완전하게 했다고 한 것도 그다음에 확인하면 착오가 있나니, 이는 ‘할 때 보는 것’과 ‘해 놓고 나서 보는 것’은 생각도, 보는 눈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9. <사람을 볼 때>도 ‘분위기’나 ‘겉’만 보고 믿지 말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행한 일’을 보고 믿어야 속지 않나니, 이

것이 ‘지혜’이니라.

10. <짐승>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을 속이나니, 세상을 살려면 스스로 항상 ‘사람’을 조심하고 행해야 되느니라.

11. <속이는 자, 사기꾼>은 자기를 믿게 속이고, 믿으면 떠나 버리느니라.

12. <사랑>도 그러하고, <물질>도 그러하고, <물건>도 그러하니라.

13. <사기꾼들>은 ‘속이는 방법’에 능숙하고, 자기도 할 것처럼 껴서 하니, 그것을 보고 ‘저 사람도 같이 하니, 속이진 않겠지?’ 하며 믿고 따라가지 말아라.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속이지 않으니,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만 믿고 행하여라.

15. 사람이 잘되다 안되면 속이고, 주의 법을 범하면 속이느니라.

16. <이성(異姓)에 대해 속이는 자>는 ‘사랑의 법’을 범했기 때문이니라. 사실을 말하면, 자기가 받던 하늘의 사랑을 못 받으니 자꾸 속이느니라. 그러다 <주>가 사실을 알면, 다른 이유를 대며 도망을 가느니라.

17. 마치 도둑이 주인에게 들키면 도망가듯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들키면, 그때는 더 이상 못 속이니 아담과 하와같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느니라.

18. <사탄>도 들키면 더는 못 속이니,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느니라.

19. 누구든지 모르면, <속이는 자>에게 속느니라. 다만 ‘상대를 완전히 믿느냐, 조금만 믿느냐’에 따라 ‘아주 속든지, 일부만 속든지’ 차이가 있느니라.

20. <사랑의 죄를 짓고 속이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담대하게 속이느니라. <속이는 것>을 알고 말하기 전까지는 계속 속이느니라.

21.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보는 자>는 ‘속이는 자의 말’을 바로 믿지 않고 <행실>로 확인하고 알게 되느니라.

22. <주를 잘 믿다가 이성 사랑에 빠져 속이는 자>가 있기에 “네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이성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배신하면 영원히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니,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결백하다고 하며 주를 담대히 속이느니라. 확인해 보니, 이미 타락하고 변질되어 섭리사를 떠날 결심을 하고 그리 담대히 행한 것이니라. <속이는 자>는 ‘성 밖’에 있는 자가 되어 그 행한 죄값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면, 따르는 자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행한 것’만 보고 믿고, 또 ‘잘 보이려고 행하는 것인지’도 봐야 되느니라.

23.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영감>을 받으면 즉시 알게 되느니라.

24. <주>는 알아도 속아 주기도 하나니, 이는 ‘그를 용서하고, 그 욕과 혼과 영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탄>에게 끌려가면 다시 오지 못하니, ‘죄를 용서하여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니라.

25. 하나님과 주를 속이고 자기 길로 떠나가면 그 죄로 인해 사탄과 사망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다스리나니, 그때는 자기가 <세상 유혹자, 이성 사랑>에 속은 것을 알고 ‘어찌 내가 하나님과 주를 버리고 이같이 살게 되었나? 평생 한이다.’ 하며 탄식하리로다. 이들은 자기가 <사망권에 있는 자들>에게 속고 유혹되어 자기가 ‘자기 욕과 혼과 영’을 그리되게 만든 것이니라.

26. <속게 된 것>은 ‘예정’이 아니나니, 자기가 ‘자기 때’에 하나님과 주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람을 쓰고 ‘사랑’으로 유혹하였느니라.

27. <진실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자격이 안 되느니라.

28. 삼위와 주를 진실로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할지니라

<2018년 5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암기한 것>도 ‘생각’해야만 생각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암기하고 있어도 ‘생각’해야 생각난다.

2. 생각에서 잊지 않게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날은 삼위도 주도 못 만나고 지나가 버린다.

3. 일반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한다. 이는 만물이 눈에 보이니 보통으로 보는 격이다. 봤으면, <생활>을 해야 된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으면 대화하며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얻을 것을 얻고, 육도 영도 ‘삶의 차원’이 달라진다.

5. <그림>을 그릴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보고 그리는 것>이 있고, <자기가 뇌에 암기해서 그리는 것>이 있다. <단어>도 자기가 ‘뇌에 암기한 단어’를 사용하듯이, <그림>도 자기가 ‘뇌에 암기한 것’을 그리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에 대해서도 암기하고 살아야 된다. 이같이 하면 <암기한 단어>를 순간 말하듯, <암기한 그림>이 순간 생각나서 그리듯, 언제 어디서나 삼위와 주를 잊지 않고 늘 대화하게 된다.

6. <암기한 그림>은 생각하면 눈에 보인다. <보인다>는 것은 ‘생각난다.’ 함이다.

7. <신앙>에서도, <자기 생활>에서도 해야 되는 것을 암기하고 수시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가도 스스로는 생각이 안 난다.

8. 매일 기도하고, 할 때 해야 된다.

9. 삼위와 주를 잊지 않고 생활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매일 삼위와 주를 100번, 300번씩 부르기다. - 이는 <1단계, 초보 단계의 신앙>이다.

10. <2단계>는 삼위와 주를 부르면서 ‘한 마디, 두 마디씩 말하기’다. 가령 “감사해요.” 혹은 “사랑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같이 하루에 100회씩 하면 된다. 이같이 감사와 사랑 고백, 혹은 한마디 대화다. 가령 “오늘 나와 같이 해요. 삼위와 주의 육이 될 테니, 나를 통해 꼭 원하는 일을 하세요. 감동을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니, 삼위와 주와 함께 하게 된다.

11.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각각 부르며 대화해야 된다. 수백 가지의 할 말이 있다.

12. <3단계>는 아예 ‘대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긴 대화>를 하면 하루에 20~30번 정도 되고, <짧은 대화>를 하면 하루에 70번 정도 된다. 이 단계에서 삼위와 주께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같이 하는 자는 자기 뇌에 삼위와 주를 늘 암기하고 잊지 않으며, 삼위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다. 이를 반드시 해라.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아예 틈을 안 주고, 늘 차원을 높이며 사는 삶이다.

13. 늘 삼위께 전할 말씀이 있는지 물어라. 그러면 삼위가 그때마다 말씀하신다.

14. 삼위와 주와 늘 대화하고 같이 사는 삶의 전문가가 되어라. 아예 결혼해서 살듯 해야 한다.

15. 삼위와 주를 모시고 늘 사랑하며 살아야 <육의 행실>을 통해 <영>이 삼위의 형상을 닮아 아름답게 변화되어 황금성 천국에 가게 된다.세상에서 이같이 <자기 영>을 변화시키지 않고 휴거되지 못하면, 육신이 죽고서는 황금성 천국에 못 간다.

16. <주>는 지난 10년을 늘 이렇게 삼위를 모시고 사랑하며 보냈다. 아예 뇌에 암기하고, 삼위와 늘 대화하는 삶이었다. 그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말씀들을 전해 줬다. 모두 주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 자기도 <제2의 주>가 된다.

17.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 하리라.” 한 때가 지금 이때이니, 모두 ‘개성의 왕’이 되어 하여라. 지금 시대는 모두 ‘개성의 왕’이 되어 사는 시대다.

18.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느 날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한 번만 진정으로 불러도 종일 도울 것을 돕고, 사랑해 준다.” 하셨다. 진정으로 한 번만 불러도 이같이 해 주시는데, 종일 부르고 대화하면 얼마나 함께해 주시겠느냐.

1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영>이 늘 함께하시며 쳐다보고 계시니, 이를 확실히 알고 믿어라. 이 말은 100% 진실이며, 참이다.

20. 삼위와 주가 늘 함께해 주셔도 자기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떠나가신다. 고로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21.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안 떠나고 옆에서 계속 자기를 주관한다.

22. <회개>하면, 사탄도 떠나고 깨끗하게 되어 다시 성령님도 주도 오신다. 성령님은 항상 주와 함께 동시에 오고 가신다.

23. 이제 각자 삶 속에서 ‘개인 신앙’을 해야 된다. 그동안 수천 번씩 설교해 주었다. 그 속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들어 있다. 특히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 천 번 이상 시대 말씀을 전해 줬다. <휴거>까지 다 이뤘으니, 이제 각자 삶 속에서 삼위와 주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4. 자기가 삼위를 가까이하면, 삼위도 각자에게 가르쳐 주신다.

25. 가령 <결혼한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물으면, 부모는 “네가 같이 사니,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사랑하는 자에게 물어봐라.” 한다.

26. <주>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 주니, 이 말씀대로 해라. 첫째, 결혼해서 사는 자와 같이 사사건건 대화하고, 같이 생활해야 된다. 둘째,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황금성 천국에 갈 자들이니,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각각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러지 않고 <사람>과 살면, ‘그 사람과 사는 생활’이 된다.셋째, 삼위는 각위로 존재하시니 종일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고, 성자를 부르고 각각 이야기하여라. 감사 헌금은 한 분에게만 해도 되지만, 말은 각각 해야 된다. <개성>이다.넷째, 휴거되어 ‘결혼한 자’와 같으니, 저마다 삼위와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얻는 것은 제 하기에 달렸다.다섯째, 매일 뜨거운 사랑이다. 사랑이 변치 않기다. 이같이 사랑하는 자만 안다.

<2018년 6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은 누구든지 ‘신부 입장’으로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성자께도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 <신랑 입장>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자기 욕도 영도 드려야 된다.

2. “<성령>은 여성신인데 어떻게 ‘신랑’으로 대하지?” - 이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3. <월명동 자연성전>도 남자든, 여자든 모두 ‘대상’이 되어 사랑하며 쓴다.

4. 가령 <물>을 사랑하는데 남자, 여자가 상관있느냐. <음식>을 사랑하는데 남자, 여자가 상관있느냐. 성령님 앞에도 그러하다. 남자든, 여자든 성령님은 ‘전능하신 주체자’이시다. 이같이 하나님도, 성자도 그러하시다.
5. 만일 <육적 이성 사랑> 같으면 ‘대상’이 구분된다. 그러나 <금덩이>를 사랑하거나 <집>을 사랑하는 데에는 남녀 상관이 없다. 남자든, 여자든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자기 사랑을 다 드려야 된다. <영 사랑>도, <육 사랑>도 다 드리는 것이다.
7. 인간이 <이성적 사랑>으로 삼위를 사랑해도, 그것이 삼위께 갈 때는 ‘영 사랑’으로 변화돼서 간다. 지구 세상 75억 명이 다 사랑해도, 삼위는 그 사랑을 다 받으신다. 그러니 ‘삼위는 <이성 사랑>은 안 받으시니, 하체는 세상의 육신 있는 자와 사랑해야지.’ 하지 말아라. 이 사랑도 모두 삼위께 드려라. 털 하나도 뽑지 않고 몽땅 다 삼위께 드려라.
8. 삼위께 드릴 때는 <죄를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드리기>다. <의의 것, 좋은 것으로 드리기>다. <의의 삶>이다.
9. 절대 변하면 안 된다. 변하면, 사망이 삼킨 바 되어 끝난다.
10. 끝까지 변치 말아라. 하나님이 지옥에 넣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11. 성령님도 빼 주시고, 주도 빼 주시니,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포기하느니, 회개하고 다시 잘하면 된다.
12. 사람들을 보면, 시험에 들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을 버리고 나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보아라. 언제나 변치 않으신다.
13. <삼위>는 ‘몇 번이나 용서했는지’ 그 수를 세지 않으신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대로 다 용서해 주신다. <주>가 화나서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과 성령님께 가면 된다. 그런데도 포기하고 지옥 쪽으로 가면, 사탄이 아예 못 돌아가게 발을 끊고 손을 끊어서 버려둔다.
14. <시험에 든 자>가 있으면 월명동에 가서, 혹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주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고하여라.
15. 사람에게 시험 들고 꺾였느냐. 민족과 세계가 핍박해도 꺾이지 마라. 하나님과 주가 꺾기 전에는 너를 꺾을 자가 없다.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꺾고 행하여라.
16. 한번은 어떤 자가 선생에게 고하기를, 누가 자기에게 욕을 해서 싸웠다고 했다. 고로 이를 성령님께 고하니, “<주>를 보고 깨달아. 민족이 욕하고 억울하게 했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오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사람은 예전에도 지도자가 그같이 대해서 섭리사를 나갔다가 온 자였다. 고로 그에게 “성령님께 늘 이야기하면 된다. 이제는 절대 나가지 말고 내게 고해라.”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그 말씀대로 안 나가고 성령님께 고했다고 했다. 고로 그에게 잘했다고 하며, 그림을 상으로 줬다. 주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17. <시험을 이긴 자>는 하나님도 상을 주신다. <할 일을 한 자>에게도 상을 주신다.

<2018년 6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늘 삼위와 주와 생활에서 대화하면서 풀 것을 풀어라.
2. 선생은 세상이 핍박하고 구시대가 막고 반대했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며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삼위와 대화하면서 풀 것을 풀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건들면, 나를 건드린 것이니 그 행위대로 배로 갚아 준다. 그냥 안 둔다. 누구든지 행위대로 갚아 주지 않으면 부패되어 안 된다. 지난날 행위대로 다 갚아 줄 것

이니, 기뻐하며 네 일을 하여라.” 하셨다.

3. 모르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모르고 독약을 먹고 죽기도 하듯, 모르고 핍박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4. 하나님의 6000년 구원 역사를 봐도 그러하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보낸 자를 맞지 못한 자들>은 <맞은 자들>을 늘 막고 반대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맞은 자>와 <맞지 못한 자>를 세상에서도 갈려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갈려 살게 하셨다. 소경들은 모른다.

5. <세상 도시>를 봐도 그러하다. 시대가 빠르게 발달하니, 몇년만 돼도 <새 도시>와 <옛 도시>가 갈린다. <분당>도 ‘신도시’라고 하더니 벌써 ‘옛 도시’가 되고 건너편 <판교>가 ‘신도시’가 되어 발전해 간다.

6. 섭리사에서도 ‘옛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식’으로 하는 자는 ‘구시대’와 같고, ‘옛 도시’와 같다. 이런 자들은 옛것만 배우고 안 하니, 젊은 신시대를 못 끌고 간다. 젊은 자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

7. 하나님은 ‘젊은 사무엘’이 나오니, 엘리 제사장의 사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젊은 자, 통하는 자>와 통하신다.

8. <음식>도 ‘옛것’은 안 먹는다.

9. <새 역사>가 와서 ‘새 시대 식’으로 주는데 왜 ‘구시대 식’으로 받고 가르치느냐. <2000년 역사>가 지겹지도 않느냐. 섭리사에서도 그러하다. <20년, 30년 전의 식>이 지겹지도 않느냐. 지도자가 <옛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모두 바뀌라.

10. <오래된 자들>은 개조해야 된다.

11. 섭리사는 ‘옛것을 그대로 하는 꼴’을 못 본다. 매일 새롭게 해야 된다.

12. 모두 새롭게 바꿨는데 <지도자들>이 ‘옛 방식’으로 하면, 10대든지, 20대든지, 30대든지, 누구라도 안 통한다.

13. <옛 방식들>은 다 버려라. 하나님은 ‘깨끗한 구름’을 타신다.

14. <몸>을 새롭게 바꿀 수는 없으니,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뀌라.

15. <옛 식>은 금전도 잃게 하고 시간도, 젊은 청춘도 잃게 한다. 생명들도 나가서 다시 안 온다.

16. 나이 50세가 넘으면, 자꾸 뇌세포가 죽어서 잊는다. 그러니 누가 교회에 안 나오는지도 모른다.

17. <지도자, 교역자들>은 하루에 10명 이상 만나 줘야 된다. <프로>는 20명 이상 만나고, <금메달리스트>는 그 이상을 만난다.

18. 힘도 없고, 열정도 없으면 팔방미인이 와도 못 다스리고 뺏긴다.

19. 전국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 교역자가 잘한다.” 하고 편지 오는 교회가 몇 군데밖에 없었다. 잘하는데 보고를 안 하는 것이나, 혹은 못해서 안 하고, 보통으로 해서 안 하는 것이나.

20. 하나님과 일체 되어 모두 열심히 해라. 정말 노력하고, <교회를 크게 지은 곳>은 전도해서 생명으로 채워라. <작은 교회>는 2부 예배, 3부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러다 때가 되면 ‘큰 교회’를 주신다.

21. 섭리사에서 교회를 크게 지었어도 1000명, 2000명 정도이다. 인터넷으로 선교하면, 몇천 명 금방 된다.<시대>를 따라 해라.

22. 각 교회마다 <인터넷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100명이던 교인이 금방 1000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된다. 이는 삼위가 지시하신 일이다.

23. 인터넷으로 한 사람이 100명씩만 선교하면, 수백만 명이 된다. 해라. 인터넷으로 선교하면서 말씀을 넣으면 된다. 그러면서 예배로 인도하면 된다. 기성도, 이단들도 이같이 해서 엄청나게 한다.

24. <옛 식>은 안 된다. <시대>에 따라 '새 식'으로 해야 된다.

25. <천국>에 가야만 자기 소원대로 한다.

26. 자기 소원대로 하려면 '황금성 천국'에 가야 된다. <황금성 천국>에 가면, 자기 소원대로 살게 된다.

27. 더 높은 천국에 갈수록 더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28. 먹는 것이 뭐 그리 중하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속에 만사가 다 들어 있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영원한 자와 사랑할 때> 그렇게도 좋은 것이다.

2. <자기가 좋아하는 자와 사랑할 때> 그렇게도 좋은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도 싫은 것이다.

3. 호기심에 그렇게도 사랑했어도 '실체를 겪지 않은 자'는 뻔하다. <생각의 눈>으로 보면 안다.

4. <눈으로 보는 것>이나 <생각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같다. 뻔하다.

5. <눈신경>과 <뇌신경>은 같은 '한 덩이'다. 위치만 다르다.

6. <뇌>는 '영'으로 연결시켜 근본까지 본다.

7. <죄를 용서해 준 것>이 그리도 크고 기쁜 일이다.

8.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도 혼도 육도 '죄의 주관권 속'에서 살아야 한다. 거기서 '짖값'을 받게 된다.

9. <시대의 죄>는 구원자가 몽땅 지고 가는 것이다.

10. <구원자>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몸이 되어 '시대의 죄'를 지고 가야 된다.

11.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이유를 달고 내려놓고 가면, '그 죄에 해당되는 자'는 방황하고, 구원을 못 받게 된다. 고로 그 쓰린 것을 보는 것보다 아예 말없이 고통받고 가는 것이 낫다.

12. 죄를 용서받으면, 그 대가로 더 잘하고 공적도 쌓으면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도록 '더 높은 차원'으로 벗어나야 된다.

13. 죄를 지어서 용서받고도 그대로 살면, 또 죄를 짓게 된다.

14. 오래가야 ‘꽃’이 핀다. 더 오래가면, ‘열매’를 연다. 더 오래가면, 번성하고 번창한다.
15. 더 열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얻은 것을 잘 관리하며 써야 된다.
16. 하나님의 목적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여라.
17. 호랑이를 잡는 것이 자기의 평생 희망과 소망이라면, 호랑이에게 물리더라도 잡는 것이 ‘영원한 성공’을 이룬 것이다. 그로 인해 묶이고 고통받았어도 목적을 달성했으면 영원한 영광의 성공을 한 자다.
18. 고통도, 아픔도, 묶이는 것도 싫어서 ‘목적’을 못 이룬 자’는 인생 일생 영원히 실패한 자다.
19.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너는 ‘의의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라.
20. <알지 못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는 짐승들과 같다. 날면서 하면, 악한 저 짐승들을 공격한다. 불법한 자들을 묶는다.
21.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삼위와 인간이 일체 되어 <육>은 일생 동안, <영>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다. 그 뜻을 위해 행하여 이룬 자는 묶이고 고통을 받았어도 ‘성공한 자’다. 고로 영원토록 빛이 난다.
22.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된다. 그로 인해 고생도, 고통도, 아픔도 사라지고 ‘영광의 세계’가 계속된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게으른 것>도 ‘병’이다.
2. 하루는 늦게 일어났더니, 꿈에 ‘잘 안 낫는 피부병’이 내 몸에 손바닥만큼 난 것이 보였다. 이를 두고 성령님께 물으니 “<시간>을 안 지킨 것을 보인 것이다.” 하고 해석해 주셨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생각의 병>도 된다. 내 생각대로 안 해도 병이다. <시간>을 지키고, 내 생각대로 하면 꿈에 보인 병이 낫는다.” 하셨다.
3.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달리한 것은 정말 고치기 힘들다. 늦게 일어나도 기어이 내 책임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니, 성령님은 이를 지적하시면서 이날 꿈 다른 꿈이 순간 생각나게 하셨다.
4. 꿈에 한 장소를 갔는데, ‘큰 알밤’이 여기저기 있었다. 같이 있던 내 큰형에게 여기에 큰 밤이 있다고 가르쳐 주니, 큰형이 좋아하면서 그곳에 있던 큰 밤들을 주웠다. 큰형은 ‘4개의 큰 밤’을 주웠고, <나머지 작은 밤들>은 내가 주웠다. 이 꿈을 두고 성령님께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는 ‘네 육’이다. <네 육>에게 밤을 줌게 한 것이다. 그리고 <4개의 밤>은 ‘4시간’이다. <네 육>에게 ‘4시간’을 줬으나, 그 시간은 ‘육’이 잠을 자고 끝났다. <새벽 시간>을 ‘크고 좋은 밤’으로 보이며 네게 주었으나, <네 육>이 쓰고 끝났다. <4개의 크고 좋은 밤>은 그 시간에 든 ‘잠언의 말씀’도 된다. <나머지 작은 밤들>은 내가 늦게 일어나서 쓴 잠언들로, 일찍 일어나서 쓴 잠언들보다 작은 것을 쓴다는 계시다.” 하셨다.
5. 이 꿈은 ‘계시’라 풀기 어렵다. <꿈을 못 푸는 자>는 이 꿈을 두고 ‘형제에게 밤을 주는 꿈이구나.’ 한다. 이는 기성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푸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겠느냐.
6. <하나님의 생각>대로 ‘시대 말씀’을 풀고, 해석해야 된다.
7. 선생은 성경의 “주가 구름 타고 온다.” 하는 말씀을 “<사람>을 타고 온다.” 하는 말씀으로 깨닫고 풀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삼위와 함께 새 시대 역사를 폈다.
8. <꿈에 본 내 형제>는 실제 형제가 아니고, ‘내 육’을 보인 것이다. <자기 육>은 ‘형제’나 혹은 ‘자기 식구들’로 보인다.

다.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모두 형제이기 때문이다.

9. <성경>은 '비유와 상징'이다.

10. <일반적인 비유>는 풀 수 있어도, <핵심 시대 비유>는 아무나 풀 수 없다. 또 <이 시대 것>은 성경에 기록도 안 되어 있으니 모른다.

11.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오직 '새 시대 보낸 자'에게만 주시고, 그가 풀게 하신다.

12. <구약>에도 몇 군데만 예언되어 있었지,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할 일'에 대해 나와 있지 않다. 예수님이 오셔서 90% 이상 하나님과 성자께 받고, 그것을 깨닫고 풀면서 역사를 폈다.

13. 흔히 기성인들이 섭리사를 두고 말하기를 "너희 역사는 성경에 없는데 무슨 역사를 하느냐? 신약에 '성약역사'라는 글자도 없다." 한다.<구약성경>을 보면, 거기에 '신약역사'를 한다고 나와 있지 않다. <새 시대에 대한 예언>만 나와 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정녕코 한다."라고만 말씀하셨다.

14. 하나님은 구약 때도 <새 시대>가 오니 '새 일'을 하시고, 신약 때도 <새 시대>가 오니 '새 일'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새 일'을 하셨다.

15. <기성>을 '가정'으로 축소해서 보아라. <부모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 선생의 부모도 처음에 그러했다. 후(後)에는 해 놓으니, 맞다고 했다. 밤에 "곧 해가 뜬다." 하니, 안 믿고 해가 없다고 한다. 아침이 되어 해가 뜨니, 그제야 믿는 격이다.

16. <아는 자>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뜰 것을 알고 한다.

17. <부모들>은 아니라고 했어도, <젊은 자들>은 시대가 가는 것을 보고 알고 확신하니, 못 막는다.

18. <사람>이 늙고 죽듯이 <시대>도 늙어 끝나면 그만이다.

19. <시대>를 끝까지 반대하고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무 몰랐어요." 하고 겨우 이 한마디 말만 하고 끝난다. 자기가 모르고 반대하고서 겨우 "모르는 내가 병신이었어요." 하고 끝난다. 그러니 이런 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 했으면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20. 선생의 부모가 모르고 반대했을 때 성자께 물으니, "<모르는 자의 말>은 듣지 말아라. 소경이다. 가다 보면 믿게 되니, 더 열심히 해라." 하셨다. 만일 그때 부모 말만 듣고 안 했으면, 형벌을 받고 역사도 못 이루고 망했을 것이다. 그러고서 나중에 "내가 안 한 것은 부모 책임이다." 한다고 해도, 부모가 "내가 알고 막았느냐? 모르고 그랬지. 막는다고 왜 안 했느냐?"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이다.

21. <막는 자들>은 '책임'도 못 지면서 막는다. <무지>해서 그러하다.

22. <무지>는 '사탄'이다.

23. 선생이 20대, 30대 때 형제도 나를 막고, 동네 사람들도 나를 막았다. 책임도 못 지면서 그러했다. 고로 그들의 무지를 알고 늘 기도했다. 그때 생각하기를,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를 무시한다. 하나님은 당세 때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때에는 받은 축복을 보고 또 막을 것이다.' 했다. 결국 그대로 됐다.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만 안다.

24. <세상>에서 갈리면, <영의 세계>에서는 차원상 만나지도 못한다.

25. 자기가 잘되는 것을 누가 그리 좋아하겠느냐. <자기와 일체 된 자>다. 부모도, 형제도 ‘잘되는 길’을 모르고 반대하니, 못 믿는다. 고로 혈육과 의논하지 말고, 오직 ‘전능자와 그 보낸 자’와 의논해야 된다.

26. <루터 때>도 ‘구(舊)종교인들’이 그리도 반대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잘되게 하신 일이었다. 그런데 해 놓고 나서도 반대했다. 결국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구교와 신교를 화해시키고 서로 풀게 하셨다.

27. <하나님의 뜻>을 놓고 부모나 형제뿐 아니라 ‘자기’가 모르고 반대하기도 한다. 이를 알고 오직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믿고, 그를 따라 ‘생명길, 잘되는 길’로 가야 된다.

<2018년 6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은 ‘인식’이 그리도 중하다.

2. 가령 한 남자의 <눈>을 가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피부를 만져 보라고 했다 하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처럼 피부가 곱다.” 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피부를 만져 보고서 “피부가 고와도 역시 남자네요. 사랑의 느낌이 안 나네요.” 하며 남자로 인식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앞에 남자를 데려다 놓고, 눈을 가리고 피부를 만져 보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피부가 좀 거칠지만, <여자>다.” 했다. 그러니 그도 만져 보고서 “피부가 부드럽고 촉감이 좋네요. 이성의 느낌이 확 오네요.” 하며 여자로 인식했다. 그러고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평생 살라고 하니, ‘피부가 좀 거칠지만 여자라고 인식했던 자’를 택했다. 후(後)에 가렸던 눈을 뜨고 보니, ‘여자’로 인식하고 택했던 자는 사실 ‘남자’였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길로 갔다. <여자>를 ‘남자’로 인식시켜 놓으니 남자로 느끼고, <남자>를 ‘여자’로 인식시켜 놓으니 여자로 느낀 것이다. 이같이 <기성>도, <모르는 자들>도 자기 인식대로 느끼고 산다. 그러니 <실체>가 와서 이미 했어도, 자기 인식대로만 믿고 살다가 끝났다.

3. <인식을 잘못된 자>는 ‘생각’만 그리 기빠서 산다. <이 시대>가 그러했다. 자기 인식대로 자기만 그리 생각하다 끝났다.

4.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한계선’을 넘어가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도 다시 못 돌아온다. <자기 인식>이 이미 그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5. 새벽에 꿈 계시의 꿈처럼 <자기 생각, 자기 인식대로 행한 것>은 ‘병’과 같아서 안 낫는다.

6. <게으른 것>도 그렇게 인식이 되면, ‘병’과 같아서 안 낫는다. 부지런해지면, 낫는다.

7. <습관, 인식>이 ‘병’이다.

8. <생각>이 ‘결정’이다. <생각>대로 좌우된다.

9.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환난, 핍박, 어려움이 왔을 때 ‘생각’이 그리 중하다. 생각대로 된다.

10. 환난 때 성자에게 고통스럽다고 하니 성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환난>으로 여기에 와 보는 것이지, 평생 못 온다. 이때 구경하며 기뻐하며 지내자. 나도 이때 아니면 너와 같이 못 오는 곳이다.” 하셨다. 고로 그때부터 성자의 말씀을 뇌에 인식시키고, 예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리 생각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줬다. 환난 때였지만 그때 ‘평생 원하던 것’도 얻었다. 고로 생각하기를, ‘이래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이구나. 이때가 아니면, 그냥은 기도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했다. 하나님도 뜻이 있어서 그들의 행위를 쓰고 행하신 것이다.

11. 한번은 누가 형제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싸우고 욱도 얻어먹었다고 하며, 지도자인데 그렇게 했다고 하며 편지가 왔었다. 그가 내게 묻기를, 옆에 있는 목사는 용서하고 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다. 고로 그에게 말하기를, 전에 약속한 대로 책망받아도, 욱을 얻어먹어도 고통을 이기고 안 나갔으니,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라고 그림을 그려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 심정을 생각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풀라고 했다. 자기가 잘했어도, 또 못한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환난, 핍박을 이기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주실 것을 주시고, 고칠 것은 “고쳐라.” 하신다. 그러니 모두 풀 것이 있으면 풀고 살아라.

12.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환난 때, 평소에 못 주던 것을 주신다.

13. 하나님은 <큰일>도 ‘환난 때’ 하신다. 그중 하나가 ‘2015년 3월 16일에 이룬 휴거’다. 최고 큰 날이다.

14. 모르면, 상대와 상관없이 자기가 인식한 대로 생각한다. 그러고서 나중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모르고 즐기고 살았던 삶>을 후회한다. <영>이 영원히 후회하며 산다.

15. <전능하신 성삼위>도 인간이 제대로 인식하고 믿지 않으면, 조금 알고, 느낌을 조금 받고 산다.

16.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제대로 알라고 늘 가르치셨다.

17.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크냐. 알면, ‘신’이 된다. <모르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그리 큰 것이다. 고로,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알고 인식해야 된다.

18. 전능하신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과 생각을 제대로 못 하고 믿으면, 느낌을 조금 받고 산다.

19. <무엇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지> 몇 가지 알려 줄 테니,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백 가지, 천 가지를 깨닫고 살아라. 선생은 이미 이같이 살았으니 가르쳐 준다. 제대로 알고 행하여 이뤘기에 말해 주는 것이다.

20. 첫째, <삼위>는 ‘자기가 삼위를 사랑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는 더 사랑해 주시고, 줄 것을 주신다. - 이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21. 둘째, <삼위>는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보신다. 보실 때는 우리 앞에서 두 눈으로 보시고, 또 인간의 뇌에 장치도 해 놓으시고 보신다. 그리고 말도, 생각도, 행위도 다 보신다. - 이것을 100% 믿어라. 하나님께 왜 이같이 인간의 행위를 보시냐고 물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문에 보고, 또 잘하는 자를 찾으려고 본다.” 하셨다.

22. 한번은 속으로 나만 알게 무엇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그때 성령님은 “100% 알았다.” 하셨다. 어떻게 아셨냐고 하니, “일체 됐으니 안다. 그리고 뇌에 삼위만 알게 ‘뇌신경’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실체가 보이니 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살에 명주 털 하나만 달아도 알듯 안다.” 하셨다. “신 혼골수를 살핀다. 신혼골수를 쪼개 보고 안다.” 하신 말씀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그 실체가 보이도록 해 놓았기에, 그것을 보고 안다.’ 함이다. 또 하나님의 오관(五官)은 신적으로 탁월하시니, ‘삼위는 인간의 손바닥에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작은 티가 있는 것까지 훤히 보고 안다.’ 함이다.

23. 하나님은 “사람도 깊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창조했다.” 하셨다.

2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신혼골수를 살핀다.” 하셨다. 이같이 삼위는 인간의 신혼골수를 쪼개어 다 보신다. - 이것을 100% 믿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중시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각자 삶의 터전에서 백 가지, 천 가지를 깨닫고 행하여라.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잘했으면 안 당했는데, 당하는 것이 많다.” 하셨다.

2. 잘해야 된다. 잘하면, 안 당한다.

3. <예정>은 ‘좋은 예정’은 있어도 ‘나쁜 예정’은 없다.

4. <좋은 예정>은 이루고, <나쁜 예정>은 안 한다.

5. <시대 십자가>는 ‘상대’로 인해 지게 된 비율이 더 크다.

6. 이 시대는 <하나님이 신약 때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뤘다. 이미 다 이루고, <이룬 자들>은 더 차원 높게 역사를 펴 가고 있고, <아직 못 이룬 자들>은 계속해서 행하며 이뤄 나가고 있다.

7. 성경의 ‘주가 온다.’는 말씀은 <새 역사>에 대한 예언이다. 고로 그 말씀대로 <새 역사>에 주가 와서 이미 시대의 꽃도 피우고, 열매도 열어 거둬들였다. 40년 동안 공적 역사를 펴면서 큰 것은 다 이뤘다. 그리고 성자가 땅에 오시고 7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 최고의 뜻,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뤘다. <제때, 제시간>을 안 넘기고 다 했다.

8. <부활의 새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펴 가신다. <이 역사>는 ‘1000년 새 역사 기간’까지다.

9. 섭리인들이 ‘언제 하지?’ 생각하는 것 중에 이미 한 것도 있다. 세상이 반대하니, 하나님이 미리 해 버리셨다. 이같이 <집에서 잔치할 것>도 반대자들이 반대하니, 그들이 아예 모르게 <예식장>에서 하고 끝냈다.

10. 어느 때는 환난 때, 눈보라와 비바람이 칠 때, 눈이 쌓이고 홍수가 나서 못 올 때 하기도 했다. <해당자>만 알고 했다.

11. 어느 때는 “남쪽에서 한다.” 하고서 <동쪽>에서 한 것도 있다. 또 어느 때는 두 군데서 다 하기도 했다. 이는 <한 군데>서만 ‘진짜’로 하고, <다른 한 군데>서는 ‘둘러리’로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행하시어, 자신을 환영하는 자만 ‘진짜’로 행하는 곳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이같이 하면서 역사를 펴 왔다.

12. 예수님 당세 때도 그러했다. <어차피 참여하지 않을 자>는 하나님도 부르지 않으시고, 아예 귀를 막고 사는 자들에게 일생 동안 알리지도 않으신다.

13. 가령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왜 불이 났는지 조사해서 원인을 찾는다 해도 인생은 한번 살고 죽으면 끝나니, 이미 죽은 자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이같이 <자기 때>도 그러하다. <자기 때>가 지나면, 다시는 못 한다.

14.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생시에 못 하면 죽어서 하면 된다.” 한다. 이는 <봄>에 못 한 일은 ‘가을’에도 못 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의 말로 끝난다. <이 시대>도 어렸어도, 하나님은 ‘그때, 그날 한 자들’을 통해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들이 커서 계속 역사를 펴 나갔다.

15. <많은 자>가 기다렸어도 <아는 자, 소수>만 맞고, “성경의 예언을 이뤘다.” 했다.

16. 성경에 크게 예언했어도 <시대 처지와 현실>에 따라 작게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내기도 한다.

17. 가령 어떤 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관광지에 가서 한턱낼게.” 했다 하자. 고로 친구들은 아침밥도 안 먹고, 기대하며 관광지로 갔다.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음식점을 고르려고 하니, 그 지역 형편상 식당이 몇 군데 없고 떡국 집이나 라면 집같이 간단한 것을 파는 곳만 있었다. 고로 거기서 모두 배불리 먹고 끝냈다. “한턱내겠다.” 한 약속대로 하고, 끝낸 것이다. 그중에 ‘큰 것’만 생각하고 안 먹은 자는 희망으로 기대했으나, 결국 종일 굶고 끝났다. 이같이 <이 시대>도 그러했다. 오직 <주인>만 안다.

18. 어떤 자는 “예전에 약속한 것은 언제 이뤄요?” 했다. 이미 환난으로 인해 달리 해 줬다. 환난 때는 못 만나니, 편지로도 해 줬다.

19. 하나님은 안 될 때 ‘방법’을 달리해서 정녕코 이루신다. 그러나 이를 모르면, 희망으로 기다린다.
20. <방법을 달리해서 받은 것>을 보아라. 그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21. “주가 도적같이 온다.” 한 것도 <구시대 기성인들의 인식>과 달랐다. <과거 생각으로 기다렸던 자들>과 <실체를 겪고 난 자들>을 비교해 보아라. 까놓고 했어도 모르니, 그것으로 끝났다.
22. <이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으로 하면, “도적같이 온다.” 함을 이룬 것이다.
23. 누가 알든 모르든 <주인공>은 ‘자기가 이룬 것’이 중하니, 그것만 실속 있게 하고 간다.
24. 가령 <소>를 사 온다고 했는데, 그때 그 장소에 ‘소’가 없으니 <돼지>를 사 와서 잔치하는 격이다. <소>만 기다리다 안 온 자는 모르고, 와서 잔치에 참여한 자만 안다. 이같이 하니 모른다.
25. 하나님도 그때 처지대로 하시고, “어쩔 수 없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네게 전에 약속한 것이 이것이다. 큰 것을 주면 사람들이 알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러니 이 작은 것으로 받아라. 큰 것보다 더 좋다.” 하셨다.
26. <행한 자>에게만 준다. 고로 <행하여 받은 자>만 안다.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월명동>을 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게 “정말 위치가 좋은 곳을 주겠다.” 하셨다. 그리고 물이 많아서 수영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셨다. 그때는 월명동에 물이 없을 때였다. 개발해서 지금 이같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주신 것이다. 그때 처지대로 다 해 주셨다.
2. 하나님은 ‘작은 것, 큰 것’을 안 따지시고 그때 처지와 상황대로 해 주신다.
3. 시대가 어려우면, 집에서 조용히 잔치하고 끝낸다. 그러니 모른다.
4.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으로 세계가 떠들썩했을 때도, <실체>는 ‘프랑스에서 8개국의 젊은이들이 모여 하나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와 함께 행사를 한 것’이었다. 이날은 선생이 21일 금식을 끝낸 다음 날이었다.
5. <하는 자>만 안다. <하는 자>만 푸짐하게 하고 기뻐한다.
6. <하나님의 심판>과 <평화의 역사>다. 성자와 함께 했다. 결국 그 후로도 유럽의 나라들을 다니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이루었다. <평화의 주인공>이 가니,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세계 평화 기구 UN>에서는 2000년도를 ‘세계 평화 문화의 해’로 선포하였다. <세계 평화 기구>는 평화의 주인공이 태어난 1945년도에 창설되었다.
7. <성령님>은 성자가 가시고 나서부터 ‘시대 사명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그와 함께 땅에 좌정하여 계신다.
8. 지금은 정말 좋은 황금기다. 이때 성령님과 주와 함께 부지런히 해라.
9. <휴거된 영들>은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황금성 천국에서 ‘천 년 혼인 잔치’를 하고 있다.
10. 새벽꿈에 <밤을 주운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지금껏 이같이 말씀을 받아 전해 주었다. 생시에 ‘밤 하나’ 줍지 않고 끝난다. 실제 밤을 줍는 꿈도 아니고, 밤을 먹는 꿈도 아니다. 오직 <아는 자>만 안다.
11. 성경을 문자 그대로 푼 기성이나 이단들은 문자 그대로 믿으며 늘 희망으로 기다리며 산다. 마치 <남자>를 ‘여자’

라고 희망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와 같다. 후에 알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겠느냐. 하늘이 무너나는 충격일 것이다.

12. <꿈>도, <성경>도, <말씀>도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고로 <실체>는 다르다. 이를 알고 사니, 고생돼도 얼마나 좋냐. <시대 온전한 길>을 가니, 얼마나 좋냐.

13. <모르는 자>는 더 노력하며 해도, ‘헛길’로 간다.

14. 지구 세상 수백 개의 단체들이 성경을 이룬다고 했으나, 모두 깨지고 말았다.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들은 ‘자기 식’으로 하다가 종점까지 가서는 아닌 것을 확인하고 끝난다.” 하고 말씀하셨다.

15. 그들은 <휴거>의 ‘휴’ 자도 모르고 사용한다. <휴거>는 오직 하나님의 새 시대 역사에서 ‘사랑’으로 이룬다.

16.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시대 구원자>가 세상 죽음의 운명들을 위해 조건을 세워 주고 그들에게 ‘생명길’을 줬으니, 회심하고 올 자들은 온다. 안 오더라도, 주가 조건을 세운 고로 그 길에서 실 가닥만큼이라도 구원을 이루기도 한다.” 하셨다. 고로 <주>는 지난 10년간 지구 세상 75억 사람들과 각종 종교들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핵>이 잘되려면, <전체>가 잘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대해도, 몰라서 그런다고 하고 기도해 주면서 가야 한다.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불가능한 일>도 ‘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2.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도 자꾸 하다 보면 가능해진다.

3. <야심작을 쌓을 때>도 계속 무너나서 울며불며 쌓고 또 쌓았다. 그로부터 18년 후에 하나님께 야심작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나의 야심, 자존심이 무엇이냐? <나의 보좌>가 아니냐.” 하셨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기필코 야심작을 쌓으셨음을 깨달았다.

4.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니 4시 30분이었다. 씻고 나니 40분이 넘어가고, 굴에 가서 물을 마시고 <3.16 휴거기념관>까지 가니 45분이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잠언 7편을 받으니 49분이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 주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다.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불가능한 일>도 하면 불가능이 없다.” 하셨다.

5. 우물쭈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번개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6. <사랑>하면, 우물쭈물 망설이지 않는다. 왜? <사랑>은 “내가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곧, <실천>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7. <실천하는 목적>이 ‘사랑’이다. <하나님>도 ‘사랑’에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기필코 행하셨다. 지구가 두 쪽, 세 쪽이나도 ‘한 쪽’을 가지고 기어코 행하신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8.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같이 살면 서로 성격도, 얼굴도 닮아 가듯이,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행하심’도 닮아야 된다. 이는 곧,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함이다.

9.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10.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마치 연애할 때 사랑하듯 해라.

11. <사랑>하면 ‘작은 것’도, ‘큰 것’도 버리지 않는 것이다.

12. 작든지, 크든지 다 사랑해라.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13.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을 다 사랑하신다. 작은 곤충까지도 사랑하신다. 한번은 하나님께 묻기를, 사람들은 벌레가 징그럽다고 하는데 왜 벌레를 만드시고, 필요 없는 배설물을 만드셨냐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배설물>은 ‘창조물에 의한 결과물’이다.” 하셨다. 곧, <창조>로 인해서 나온 배설물과 같은 존재물도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징그럽고 더러운 벌레들은 ‘창조로 인해 나온 쓰레기’같은 것이다. 다만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못 쓰는 쓰레기가 있다. 그런데 만일 이 같은 쓰레기가 안 나온다면, 마치 밥을 먹고 배설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고, 땀이나 콧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서 존재할 수가 없다. 고로 아무리 작은 벌레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4. 작든지, 크든지 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사랑’이다.

15. 늘 ‘삼위와 함께 사랑’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좋아하고 사랑하고, 같이 행하며 사는 삶이다.

16. <말씀 사랑>은 ‘실천’이다.

17. <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시를 주실 때>, 그때 그 환경과 처지와 차원으로 받는다. 마치 구약과 신약과 성약이 각각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다르듯이, 또한 <산에 다 올라가서 단풍을 구경하는 사람>과 <차를 타고 가면서 단풍이 어떠한지 생각으로만 상상하는 사람>이 다르듯이 <시>도, <말씀>도 차원에 따라 다르다. 고로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시>를 주시면 자꾸 읽어 봐야 된다.

18.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깊게, 감동적으로, 충격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으니, 곧 ‘만물’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이다. <이론으로만 배운 자>는 ‘실존, 실상을 통해 배운 자’를 따라갈 수가 없다. 실존 앞에 이론은 하나의 상상이다.

19. <실존>을 만들려면, 뛰고 달리면서 ‘재창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도 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만들어 놓고 가겠다고 했다. 고로 노래도, 시도, 잠언도 써서 남긴다. <솔로몬>도 왕으로서 할 것을 다 해 놓았다. 궁궐을 짓고 싶으면 궁궐을 짓고,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 사랑해 주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도 지어 주고, 그러면서 3000잠언도 받았다. 하나의 이론으로, 상상으로 했으면 이같이 못 했을 것이다. 많은 기도를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 기도를 한 만큼 ‘실천’해서 얻은 것들이다.

20. <잠언>은 ‘하나의 문학적인 말씀’이다. 고로 하나님은 잠언을 주실 때 군더더기 없이 ‘한마디’로 주신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답을 주셨으면, 그다음에는 왜 그러한 잠언을 주셨는지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와 같이 성경도 ‘답’을 받으려면, ‘성경의 문제’가 무엇인지 많이 읽어 봐야 된다.

21. <문제>를 알면, ‘답’을 정확하게 안다. <문제>가 ‘답’이다.

22.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도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모른다. 가령 <답>이 ‘8’이라고 가르쳐 줘어도,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모르면 답을 받아도 ‘문제’가 된다. <2 곱하기 4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그때는 정확히 아는 것이다.

23. <월명동 하나님의 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선생이 영계에 갔을 때 하나님은 “여기만 오지 말고, 땅에 나의 전을 둘 테니, 그 전을 만들어라.” 하셨다. 이는 ‘답’이었었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인지 몰랐다. 성경의 계시록을 보니, “나의 전을 땅에 두리라. 높은 곳에 두리라.” 한 말씀에 대한 답인 것을 알고, 내가 땅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만든 것이다.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전이다.

24. <성격 급한 사람들, 실존에 약한 사람들>은 ‘답’만 받으려고 한다. <답>만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알아야 된다.

25. 인생을 살아갈 때, 먼저는 ‘문제’다. <시험을 볼 때>도 먼저는 문제를 내고, 답을 쓰는 것은 그다음이다.

26. <시대 세레 요한의 전초>는 ‘주만을 위한 전초’가 아니다. <전체를 위한 전초>다. 고로 시대 세레 요한과 같이 전초하고, 같이 행하고 일하면서 전체가 발맞춰 가야 된다.

27. <따르는 자들>은 ‘시대 세레 요한’과 일체 돼서 해야 된다. <시대세레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서 행함으로 주의 발판이 되고, 주를 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8. <메시아>는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성자와 일체 되었으니 하늘에서 난 자다. 그리고 <세레 요한>은 ‘백성들 가운데 대장’이다. 하나님은 세레 요한에게도 그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시고 외적인 일도, 내적인 일도 하게 하신다. 고로 <세레 요한>은 메시아와 일체 돼서 행하면서 메시아의 권한 대행도 해 주고, 경호도 해 주고, 붙잡아 쥐야 된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의 세레 요한은 사명을 제대로 못 했다. 제대로 했으면, ‘부메시아’로서 늘 예수님과 같이 붙어 있고, 일체 되어 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식관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두고, “나는 폐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그를 쳐다보는 것으로 만족한다.” 했다. 깨달았으면 이같이 말하지 않는다. 못 깨달았기 때문이다.

29. <세레 요한>은 ‘메시아를 만나는 문’이다.

30. <따르는 자들>도 ‘하나의 세레 요한들’이다. <시대 세레 요한의 기준>을 따라서 일체 되어 해 나가야 된다.

31. 잠언 중에 “조직해야 조진다.” 라는 잠언이 있다. 이 잠언대로 조직해서 해 나가야 된다.

32. <잠언>을 그냥 읽어서는 ‘이론’에 불과하다. 백 번, 천 번 읽어도 읽으나 마나다. 자기가 말씀을 ‘생활화’해야 그 잠언이 ‘자기 잠언’이 된다.

33. <이론적인 지식>은 있으나 마나다.

34. <실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35.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36. <사랑>은 ‘남녀의 이성 사랑’만이 아니다. 미쳐서 공부하면, 그것도 ‘공부 사랑’이다. <주>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쳐다보면, 그것도 ‘사랑’이다.

37. <하나님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

38. <천국의 사랑>은 ‘마음과 생각’으로 한다. 그러면 마치 육신이 이성 사랑을 하듯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 이성적 사랑 세계를 나 여호와와의 사랑 전체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것은 세상 이성 사랑의 천 배, 만 배, 십만 배, 억만 배도 더 된다.” 하셨다.

39.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이성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사랑의 감수성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사랑하는 자를 만든다고 하니, 루시퍼는 이를 ‘이성 사랑’으로 생각해서 사랑의 감수성을 타고 하와를 꾀었다.

40. <하나님적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된다.

41. <사랑>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먼저 배워야 한다.

42. <하나님적 사랑>은 ‘세상 육적 사랑’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주>는 루시퍼를 꺾었다. <하나님적 사랑>을 해서 시대 말씀을 넣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계를 만들어 나갔다. 그래서 하와를 뺏는 데 성공했다. <세상 이성적 사랑>으로 빼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43. <생각 뺏기>, <사상 뺏기>다.

44. <사탄>은 꺾어서 정신을 뺏어 간다. 고로 <주>는 먼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쥐서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령했다. 사탄이 <말씀의 근본자>는 뺏어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자는 사탄이 못 뺏어 간다.

45.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몰랐다.

46. <서운함 타고, 뒤쳐지고, 일을 시켜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다.

47. <일> 자체가 ‘말씀’이다. <사명을 주는 것> 자체가 ‘말씀’이다.

48. 사랑하면, ‘말씀’과 ‘쓰기’다.

49. 사랑하면, 말씀을 실천하고 늘 써라.

50. 사랑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자기 일’에 쓰고, ‘합당한 일’에 써야 된다. 자꾸 써야 된다. 못해도, 쓰러져도 자꾸 일을 시키고 써야 된다.

51.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말씀’을 껴안고 살아라.

52. <말씀>을 사랑하며 살도록 해라.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존재자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노라.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것을 너희들도 말씀으로 창조해라.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면, 머리에 있는 것, 생각이 말씀이니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창조적이게 되는 것이다.”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었으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들이 힘 있게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고와 해됨이 없게, 생명의 해됨이 없게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늘 하나님이 건강케 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얻을 자는 늘 얻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얻으면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이 되니, 늘 귀히 쓰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며, 이 주일도 말씀을 사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실존에 임해서 실제로 행해야 그 말씀의 근본을 깨닫고 주인이 된다. 얻을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영원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말씀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말씀을 뇌 속에, 뺏속에 넣고 행하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2. 인생을 사는 데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타락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 목적>을 이루려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고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제대로 못 한다. 그것은 무지의 사랑이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도 성장하고, ‘육신’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풍부하게 받아 성장했어야 했다. <성장하지 않고서 하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성 관계를 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느낌도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없다. 성장했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혈통의 번창’도 하고, ‘신앙의 번창’도 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그 보낸 자를 사랑함으로 ‘신앙의 번창’을 이루고, 그들이 신앙의 자녀들을 낳아서 계속해서 전도하여 번져 나갔을 것이다.

4. <전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주와 일체 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 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하나님과 극적인 사랑 관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전도를 못 한다.

5.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의 불이 붙어서 정신을 못 차린다. <선생>도 ‘하나님 사랑’에 불이 붙어서 3만 명씩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기에 ‘신부급 역사의 복음’이 번져 가게 됐다.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계속 밀려왔다. 성경의 말씀에 그 날이 되면 사방에서 택한 백성들이 모여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됐다.

6.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사랑의 접붙임, 정신적 접붙임’이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마치 난자와 정자가 일체 되듯이 ‘난자와 같은 자기 사랑의 씨, 생명의 씨’와 ‘정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씨, 생명의 씨’가 일체 되면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복음을 전하면 생명들이 온다.

7. 의학적으로 볼 때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전도가 안 되고 계속 생명 손실이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정상이면, 수만 명씩 전도를 하게 되어 있다.

8. 전도가 안 된 사람들은 ‘신랑, 하나님’과 ‘신부’가 일체 된 세계에서 극적인 사랑의 세계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본다.

9.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다. 선생은 <시대 십자가를 질 때>도 계속 말씀을 전했다.

10.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을 때는 백성들이 방자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신앙이 잠들게 됐다.

11. 예수님이 말씀을 못하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더라.

12. 말라기 선지자 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지고, 그 후에 세레 요한이 왔다. 세레 요한이 와서 외치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말씀과 성령의 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했다. 그런데 세레 요한도 긴가민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제대로 몰라서 예수님이 왔어도 못 맞았다.

13.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 뜻대로 살 수 없다.

14.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15. 계시록 19장의 말씀대로 <주>는 ‘자기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전하고 그 뜻을 편다. 그 말씀은 사명자만 알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봐야 된다.

16. <말씀>이 없으면, ‘힘’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아는 것의 힘’이 없다.

17. <말씀>을 배우고, 뜻을 깨달아야 된다.

18. 아모스 8장 이하 말씀을 보면, “기갈의 때가 오리라. 이는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때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진다.” 했다.

19.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도 희망도 없다.

20.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즉시 일어나 빛을 발한다.

2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사탄 것’에서 ‘하나님 것’이 된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세계를 가르쳐 줬고, 역사가 돼서 돌아갔던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모두 배우지 못

하고 모르면 인생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니,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생명의 역사가 늘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연을 들어 보니 우여곡절의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행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를 통해서 행하지 못한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하셔서 이랬다는 것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은 항상 대단한 일을 해 주시고 있음을 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며,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섭리사의 행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시험에 든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악령들에게 끌림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손을 댔으니 잘되고 형통되게 해 주시고, 부지런하여 말씀을 듣고 행하여 주께 가까이 이상세계에서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성자의 사랑하심과 말씀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2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이며, ‘구원’이며, ‘핵’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생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지 않겠다고 했다.
2. <말씀을 중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살아야 한다.
4.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할 일이 있으니, 곧 ‘구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야 된다.
5. 행해야 ‘구원’이다.
6. 행할 때는 혼자 행하지 말고 ‘주’와 같이 일체 돼서 행해야 된다.
7. <구원>은 ‘하나님’과 ‘주’와 일체 돼서 이뤄야 된다. 이는 절대적인 원리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는 죽는 것이 절대적인 원리이듯 구원도 그러하다.
8.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곧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 줘서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고, 길러 주고, 잡아 주고, 이끌어 줘서 구원시켜야 된다.
9.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할 일이 세 가지다. 첫째, ‘자기가 구원’받고, 둘째, 말씀을 전해 줘서 ‘형제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 이 세 가지는 마치 사람에게 영, 혼, 육이 필요하듯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10. 구원을 받는 데는 먼저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서 형제들을 또 구원시켜야 된다.
11. <말씀을 듣고 자기만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100% 이룰 수가 없다. 구원을 받아도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고로 구원을 받아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떳떳하지 못하다.
12. <말씀>을 받고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행하여 ‘구원받는 일’이다.
13.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일체 된다. 고로 인간으로서 ‘신’이 된다.
14. <말씀>을 받고 믿고 따랐으면, 그다음에는 이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그리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해 줘야 된다.

15. <말씀>을 전했기에 지금 많은 자들이 모여든 것이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혼자였다.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겠느냐. 신부들이 없으니 펴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 여자가 없는 격이다.

16.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전도해야 뜻을 편다. 고로 선생도 전도했다. 3만 명을 전도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한다. <말씀>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지구 창조 목적, 사람 창조 목적, 사랑의 뜻’을 다 이룬 것이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 격이 됐다. 곧 ‘사랑 휴거’를 이뤘다.

17. 휴거를 이뤘으면, 그다음에는 ‘사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는 휴거를 이뤘으니, 재미있게 하나님의 뜻을 펴며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만 남았다. 헤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황금기’다. 계절을 볼 때도 그러하다. 이때 단풍 절정기가 지나면 찬바람이 분다. 그때 가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단풍을 보려고 하느냐? <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제때, 제 할 일을 해라.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셨다. 이 황금기의 때에 <새벽예배에 안 나오는 자들>은 ‘순간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다.

18. 제때 행해야 얻을 것을 얻는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 이 잠언을 명심해라. 뇌 속 깊이, 뱃속 깊이 넣고 잊지 말아라.

19. 제때 못 해서 얻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행하지 않은 사람>은 얻지 못해서 모르고, <행한 사람>은 얻었기에 안다. <행한 사람>은 ‘얻은 것’을 가져다가 창고 가득히 채워 놓았다. 그러나 <행하지 않은 사람>은 ‘빈 창고’다. 얻은 것이 없으니 기쁨도, 만족도 없다.

20. 얻어야 기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린다.

21. <사랑하는 애인>도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느냐. <행하지 않은 자들>은 주를 뺏긴 것이다. 왜? <주>와 일체가 안 됐기 때문이다.

22. <주>를 뺏기면 ‘신랑’을 뺏긴 것과 같다. 신랑을 맞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는 인간이 ‘책임’을 못 해서다. <신랑을 맞지 못한 자들>은 미련하여 사랑의 등불을 밝히지 못해 신랑을 맞지 못했다. 서운함 타고, 섭섭함 타고, 이유 달고,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들을 하나, ‘하나님 말씀의 검’이 지나가면 목도 달아나고, 몸도 달아난다. 그대로 딱 끊어진다. <때>가 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주와 같이 행하여라.

23.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24.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체’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과 사랑 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펴며 같이 산다.

25.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거스르지 말아라.” 하는 잠언이 있다. 말을 안 듣고 마음을 거스르면, 아무리 팔방미인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26.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며 ‘주’다. 또한 <말씀>은 ‘사랑 덩어리, 선악과 덩어리, 생명나무 덩어리’다. 이 말씀을 뇌 속에, 뱃속에,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 그래야 계속 행하게 되고, 행해야 감동과 감화가 되고, 스릴을 느끼고 흥분된다.

27.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흥분’이 없다.

28. <시대 하나님의 궁>을 짓는 것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 행하니 마음이 흥분된 것이다. 행했기 때문에 돌이 계속 쌓이는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흥분된 것이다. -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일도 ‘사랑’이다.

29. <명예와 직급의 권세>가 아니다. <섭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도 권세가 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최고의 권세자’요, ‘최고 힘 있는 자’이며, ‘능력자’다.
30. <주>는 생중계하듯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다. 저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듣고 행하느냐는 ‘본인 의향’이다.
31.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된다. <성령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님의 몸’이 된다.
32. <말씀>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33. <말씀>을 못 받으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뜻’도 못 이룬다. 매일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행해야 된다.
34.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35. <이 시대 말씀>을 받아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편다. <구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뜻’을 펴 수가 없다. 그들은 “구세주가 곧 온다. 새 시대가 온다.” 한다. 마치 여우가 사냥감을 앞에 놓고 이빨은 가는데 물지는 못하는 것과 같다. 이빨까며 흉측한 말들만 하는 격이다. “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 하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합당하냐. 이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와 같다.
36. 지금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와 사랑하고 결혼해서 영원히 사는 때다. 고로 <때에 합당한 말>이 필요하다.
37. <말>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합당해야 된다.
38. <주>는 ‘행한 것’을 말한다. <행할 것>을 말해도, 그것을 틀림없이 행한다. 밤이 새도록 행하고야 만다.
39.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나가면 밤낮 없이 뛰고 달리고, 땅과 하늘 끝이 닿게 날겠다고 했다. 그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리하여라.” 말씀하셨다. 고로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밤낮으로 뛰면서 행해야 된다.
40. 이미 시대 5만 잠언을 주고, 3000여 편의 시를 주고, 엄청난 설교 말씀들을 줬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될 때’다.
41. <말씀>을 받았으면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창조 목적을 펴는 것이다. 이것을 못 하면 제대로 할 일을 못 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지난날 말씀하시기를, 결혼해서 아기를 못 낳는 사람 같이, 이들은 이미 하늘과 같이 결혼하고 사는데 생명을 탄생 못 시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유전자나 몸에 문제가 있듯이, 이와 같이 전도를 못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안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며 살고, 성령의 감동으로 늘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이상을 이루며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면 늘 제자리걸음에서 산다고 했으니, 그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오늘도 이 새벽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는 총을 받는 자요, 무기를 받는 자요, 미사일을 받는 자요, 전쟁의 무기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검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네 손에 쥐어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에게 무기가 있고 총이 있으니 적들이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고, 사망으로, 흑암으로, 지옥으로 마귀들이 못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면 무기로 사탄, 마귀를 쏘기 때문에 자기를 못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쏘는가 하니,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말씀으로 멸함을 받으라!” 하면 멸해지고, 그대로 됩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주권권에 있다고 했으니, 그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사, 오늘 밤에도 단상에 서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연을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쓰고서 전도했는가를 말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떤 처지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을 충만하게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을 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는 것이고, 둘째, ‘인생들의 뜻’을 이루려고 주는 것이다.
2. <말씀>은 ‘돈’과 같다. 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3.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을 다 투자하신다. 왜?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는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주고 싶어서 투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4. 남녀가 사랑할 때도 ‘자기 사랑을 줄 때’ 그리도 기쁘다.
5. <사랑을 줄 때>는 ‘투자’를 해야 된다. <돈 투자, 물질 투자, 선물 투자, 시간 투자>를 해야 사랑을 줄 수 있지, 투자도 하지 않고 사랑을 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나는 싫다.” 한다.
6. 사랑을 투자하고, 돈과 모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사랑을 주기 위함’이다.
7. 사랑을 받기만 하면, ‘만족한 사랑’이 안 된다. 이는 <사랑의 근본>을 따져 볼 때 그러하다. 가령 선물도 받기만 하면, ‘받는 기쁨’만 있지 ‘주는 기쁨’은 못 누린다.
8. <사랑 세계>도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다. 한 가지로는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9.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창조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 그래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 인간’을 창조하셨다.
10.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자기 사랑을 못 주니 사랑의 흥분도 안 되고, 사랑의 기쁨도 없고, 사랑의 느낌도 없다.
11.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12. 상대방에게 사랑을 줬으면, 그다음에 그 상대가 사랑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다. 그러나 만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는데, 여자에게서 사랑이 안 오면 ‘주는 사랑, 짝사랑’으로만 만족하고 끝난다.
13.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
14. 가령 배구를 하기 위해 돈을 들여서 운동장도 닦고, 시간을 들여서 같이 배구 할 사람도 찾고 투자를 했다 하자. 그래서 같이 배구를 할 상대를 찾았으면, 그때는 자기가 볼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기술을 발휘하면서 뛰어야 스릴을 느끼고, 투자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볼을 받기만 하고 공격만 당하면, 화가 나고 투자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같이 <사랑>도 그러하다. 받기만 하면 화가 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자꾸 사랑을 줘야 된다. 사랑을 줘야,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느끼고 기쁨이 온다는 것이다.

15. 남녀의 사랑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이 사랑을 느낄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느낀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인생 늘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6. <받기만 하는 사랑>은 흥분도 조금 되고, 기쁨도 조금 느끼고, 소망도 조금 이룬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사랑을 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누린다. <메시아>는 이것을 알고 ‘사랑’을 베풀었다.
17.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해 나간다.
18. <씨를 뿌리는 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싹이 나겠지.’ 생각하거나, 혹은 ‘얻을 것’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 고로, 씨만 뿌리고 간다.
19.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크다.
20.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먼저 사랑을 느끼고, 먼저 만족한다. 그리고 <먼저 사랑을 주는 자>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만족한다. <받는 사람>은 그에 비해 3분의 1 정도 느낀다.
21. <주는 사랑>을 먼저 해라.
22. 하나님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 인간’을 창조하셨다.
23. 하나님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왜 그 사랑을 안 받느냐? 사랑을 줘어도 하나님께 안 오면, 결국 ‘사망’으로 간다.
24. <하나님과의 사랑>이 약한 것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을 부르고, 대화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같이 ‘상대적 사랑’을 해야 된다.
25.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세상 이성 사랑’보다 적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이성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마치 <태풍의 바람>과 <선풍기의 바람>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또한 <태풍의 바람>과 <지구가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중력권의 바람>을 비교할 수 없듯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26.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면서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사랑에 들어가 봐야 안다. 알아야 제대로 행하게 되고, 누릴 수 있다.
27. 지금은 <하나님이 마음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생겼다. <하나님의 기쁨의 세계>가 정녕코 이루어졌다.
28. <하나님이 마음놓고 사랑할 그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29. <삼위>만 사랑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도 사랑해야 된다. 왜?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사랑을 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30.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것’이 크다.
31. 사랑을 받기만 하면, 흥분도 못 느끼고, 사랑의 본질의 기쁨도 못 느낀다. 이는 ‘천륜의 법’이다. 절대적이다. 지구가 쪼개져도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다.
32.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제대로 못 하고 일생이 지나가는 것이다. <주는 사랑>이 그리도 크다. 선생은 이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예수님을 사랑했다. 고로 예수님은 그 사랑에 만족하다고 하시면서 ‘지구상의 최고’라

고 하며 나를 하나님께 추천하셨다.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서 마지막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칼이 네 가슴을 찌르는 듯한 때가 오리라. 그래도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갈대가 되지 말고, 굳건한 거목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하셨다. 칼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충격적인 일들이 40년 동안 너무 많았지만, 그 말씀대로 변함없이 해 왔다. ◎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크다. <주는 사랑>을 해라.” 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33.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들의 무지’다.

34. <어떻게 살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 ‘인생들의 문제’다.

35. 사람들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매일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때마다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36.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지’ 모르니, 인생 문제에 대해 많이 묻는다. 그러면 그들에게 대답해 주기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며 열심히 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왜? 그때는 하나님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한다. 커 봐야 안다는 것이다. 선생도 어렸을 때 앞으로 뭐가 될지 하나님께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면, 그에 해당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함을 알았다. 그 후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나 보니,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시고, 시대를 가르치시고, 구원에 대해 가르치셨다. 고로 ‘아, 이 역사의 바통을 쥐어야 되는구나.’ 함을 깨닫게 됐다.

37. 알지 못하면, ‘무지’요, 알면 해결하고 행하면서 산다.

38. 인생을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잘될 것인지, 저것이 잘될 것인지 그때마다 순간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테니스를 칠 때>도 공이 총알같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쳐야 될지 순간 판단하고 빨리 자세를 잡아야 공을 제대로 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 때>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살면서 순간 판단하고 빨리 행해야 할 것이 많다.

39. 인생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지’ - 이 두 가지의 문제다. 이 문제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분별하고 알고 행할 수 있다.

40.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는 ‘계산’하면 분별된다. 그리고 ‘확인’하면 분별된다.

41. 확인해라. 그리고 계산해 보아라. 분석해 보아라.

42. 안 되는 것은 ‘방법을 달리함’으로 인해 해결되는 것이 있다.

43. <완전한 세계>는 드물다. 모든 세계에 ‘장단점’은 다 있다. 고로 <나쁜 점, 단점>이 조금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것이다.

44. 자로 재 보고, 저울에 달아 보고, 확인하고 해라.

45. <분별의 능력>이 크다.

46.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분별은 ‘쪼개고 분석하면’ 다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신흔골수를 쪼갰다고 했다. <말씀>으로 쪼개는 것이다.

47. <시대>도 ‘구시대’와 ‘새 시대’로 쪼개야 된다. 고로 ‘날짜’까지 쪼개고, ‘시간’까지, ‘초’까지 쪼개 냈다.

48. <시간>을 지키고, <분>을 지키고, <초>를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49. <분>을 지키고, <초>를 지키면 날아다닌다. 한번은 선생이 하나님께 ‘초’까지 지켰다고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맛이 짜릿하지?” 하셨다. 뇌가 흥분되니 지구 전체가 흥분된 것과 똑같았다. 이같이 <초를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어라. ◎ 여기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뺏속 깊이, 뇌 속 깊이 넣고서 제때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월명동에 비도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비가 오면 죽이 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늘도 일하는 데 아주 지장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 집을 멋있게 만드는 데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더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욕신이 되어서 오늘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사랑하는 자가 사랑해야만 기쁘지만, 그보다 자기 사랑을 줄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 기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해야 기쁘고, 축구 선수는 자기 기술을 발휘해야 기쁜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자기 실력이 있으니 뛰어 봐야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해야 기쁘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는 너희 책임이고 너희 자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만족으로 끝내신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 걸로 만족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할진대, 너희가 유익이 될 것이고,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영원한 세계까지도 갈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했으면 끝났다. 세상 창조한 목적을 나는 다 이뤘다. 내가 사랑했으니,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 사랑했으면 되지 않았냐? 그가 살아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 의향, 자기 자유의지다. 그렇게 하면,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자는 사랑받고도 사망으로 가 지옥에서 산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치 않은 연고이니라. 믿지 않은 연고이니라.” 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 마지막으로 금주에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원한 역사가 되리라.”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꾸미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게 나를 하나님의 몸으로 쓰시고, 모든 자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차고 넘치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아픈 자와 병든 자, 신앙이 약한 자들에게 함께하고, 많은 생명을 전도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사, 택한 자가 이 기회에 모두 돌아오게 축복합니다. 사탄아, 귀신아, 마귀야. 내 백성을 내놔라. 우리 하나님이 명하셨고 엄명하였으니,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는 사탄의 세계로 물러가라. 귀신도 그리할 것이다. 사탄과 귀신이 생명들을 논하고 잡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산 생명들, 환난과 고난으로 값을 주고 산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가졌으니, 사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고 나의 것이니, 생명들이 힘 있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하나님 안에 살도록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곳을 중심한 온 세계, 민족, 각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민족과 세계가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돌아오게 축복해 주시고, 민족의 모든 화목도 그러하오니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이들이 잘되고 형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운동>을 제대로 하면, 평소보다 10배 건강이 좋아진다. <깨달은 자>는 매일 ‘합당한 운동’을 하여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2. 매일 운동을 합당히 하여라. 건강하여 초인 된다. <선생>도 그리한 것이다.
3. <인간>은 만드는 대로 뭐든지 된다. 만드는 대로 아름답게도, 튼튼하게도, 멋있게도 된다. 운동해서 건강하게 만들면, ‘건강한 몸’이 된다.
4. 매일 더 좋게 만들거다.
5. <만물>과 <환경>도 만드는 대로 된다.
6. <세상의 자연 존재물>을 보아라. 하나님은 ‘만물’로 각종 것을 개성으로 신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돌>을 보면, 비가 와서 깎이게 하시고, 단단한 것은 쌓이고 약한 것을 떨어져 나가게 하시어 ‘자연석’도 만드시고, ‘형

상석'도 만드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만드신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를 만들어라.

7. 개성으로 만든 대로 써야 유익이다. 빛이 난다.

8. 자기 개성대로 쓰지 않으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가치도 없다.

9. <작품>은 자꾸 써야 빛이 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비하다.” 한다.

10. 대개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하나, 자기 지능대로 그 분야만 알 뿐이다. 그 분야 역시 분석해 보면,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아서 그 무지함을 개탄하게 된다.

11.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만사를 아는 자'다. <근본>을 알기 때문이다.

12. 사람은 저마다 알고 사는 만큼 유익이다. 알고 사는 만큼 유익을 얻을 수 있다.

13. <아는 자>는 잘되고 형통한다.

14. 알려고 노력해라. 배워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 알게 된다. 보통으로 배워서 모른다.

15. 알고 배워서 하면, 사기도 안 당하고 손해도 안 간다. 어떤 것은 손해를 보고서 깨달은 후에 다시 복구하기도 한다.

16. 알되, 온전히 알아라. 완벽하게 알아라. 분명하게 알아라.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으면 알려 주신다.

17. 몰라서 얼마나 할 일을 못 하고 손해가 가는지 알아라.

18. 알면, '신'이 되어 날마다 얻고 산다. 모르면, 매일 손해가 가도 '무엇에 손해가 가는지'를 모르고 산다.

19.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우니,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자'를 찾고, 그에게 묻고 배워라.

20. 하나님은 사명대로 합당하게 알려 주시어 행하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

21. 하나님은 사명대로만 알려 주신다. 고로 그 이상은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해도 알려 주지 않으신다.

22. <사명이 큰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상상도 못 한 것을 배우게 된다.

23. 성령님께 일체 되어 배워라.

24. 배워야 그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신다.

25. <세례 요한>은 '메시아 증거자'다. 그러나 주와 일체 돼야 알고, 일체 되지 않으면 '주의 심정'과 '주를 증거할 지식'을 모른다. <세례 요한>도 배워야 알지, 안 배우면 모른다.

26. <주>와 일체 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이리저리 갈대같이 흔들린다. 고로 예수님 때의 세례 요한도 “네가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하고 지적을 받았다.

27. <증거자>도, <증인>도, <시대 세례 요한들>도 주께 배워야 안다. 주께 배워라.

28. 항상 주와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29. <시대 세례 요한들, 증거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첩경을 예비하기도 하고, 주와 일체 되어 증거할 것을 예비하기도 해야 된다.
30. 제때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다.
31. 하나님께서 구상하셔야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고, 감탄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행하고, 만들어 놓아라.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지 않은 것>은 보편적이다.
32. <하나님의 구상>도 ‘자기 사명 급’대로만 받는다. <그릇의 크기>만큼 물을 부을 수 있는 것과 같다.
33. <높은 생각, 높은 차원>에서 봐야 못한 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
34. <만족>도 역시 자기 지능, 자기 차원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으로 그것을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
35. 그 센터에서 ‘최고 차원’으로 만들기다. 가령 <집>이라면 ‘집 중에서 최고 차원’으로 만들고, <사람>이라면 ‘사람 중에서 최고 차원’으로 만들기다.
36. 세상을 보면 날고 기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한다. 겨우 걸음마를 하는 정도다. <하나님>을 향해 날고 기고 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37.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영원성’을 얻을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성’을 얻을 수 없다.
38. 사람들은 말하기를,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는 세계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육신이 죽어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천국에 다 가지고 간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의 기념’으로 가져다 놓는다. 그러나 육신을 썼을 때 만족도이지, 영의 세계에서는 만족치 못한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작은 반지 하나’를 보면서 만족하다고 하지만, 천국에 가면 그보다 만 배, 십만 배가 더 큰 보석이 자기 정원에 있기 때문이다.<월명동>도 ‘하늘나라’에 가면 다 있다. 월명동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못하게 크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 것은 하나의 반지 정도이고, 하늘나라 것은 큰 동산 정도로 만들어놨다.
39. <육>은 자기가 세상에서 쓰던 것을 못 가져가지만, <영>은 다 가져갈 수 있다. 고로 영원히 누리려면, ‘영의 구원’을 절대 받아야 된다.
40. <구원받은 자>는 그 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기념으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계에 따로 별도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영계는 ‘말의 실상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던 환경대로 되어라.” 하고 말만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41. 만들어 보면, 최고인지 아닌지 안다. <다른 자들이 만든 것>과 대조해서 보아라.
42. <자료>에 따라 만들어지니, 먼저 ‘좋은 자료’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 <좋은 자료>가 없으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다.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처음에는 ‘자료’가 형편없었다. 그때는 <좋은 자료>로 먼저 연습하고 기술을 연마했다. 그 후에 <엄청나게 좋은 자료>를 갖다 놓고 대담하게 쌓았다.
43. <사람>도 ‘자기’라는 자료가 안 좋으면, 크게 성공을 못 한다. <섭리사>에 왔어도 행동력이나, 긍정성이나, 적극성이 약하면 그들은 역시 휴거됐어도 ‘시원찮은 휴거, 차원 낮은 휴거’가 돼서 영들을 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주>는 인간이 ‘자료’가 약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고 가르쳐 줬다.
44. <자기>라는 자료를 좋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신다. <자료>가 약하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것이

다.

45. <사람>도 ‘기본 자료’가 좋아야 ‘더 유능한 자, 더 좋은 자’로 만들고 쓸 수가 있다.

46. 잘 만들려면, ‘유능한 기술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다.

47. <하나님의 구상>이다. 그리고 <그의 몸이 되어 실천>이다.

48. 매사에 목적을 두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상’과 ‘그의 몸이 되어 실천’하는 것이다.

49. 만들어 놓고 매일 가치 있게, 빛나게 쓰기다.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이다.

50. <시대 보낸 자>가 왔어도 복음을 안 전하면 그 가치가 약해진다. <시대 복음>을 자꾸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복음’과 ‘시대 구원자’를 찾고, 많이 쓰여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21년 동안 말씀을 배워서 시대 복음을 가지고 왔어도, 구원을 시키러 왔어도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찾고 움직이게 하셨다. 고로 그때는 “기다려라. 곧 주님이 오신다.” 하며 엄청나게 외쳤으나, 지금은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니 조용해졌다. 지금은 <기다리던 자를 맞은 시대>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소리가 많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미 사랑하는 자를 취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다.

51. 쓰는 만큼 유익이다. 쓰는 만큼 가치 있고, 비싼 것이다.

52. <물건을 만들 때>는 ‘얼마나 노동 시간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가치를 따지고 계산하지만, 또 하나는 ‘얼마나 필요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꾸 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좌우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를 만들 때 ‘얼마나 필요하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좌우된다.

53. 자기는 귀하게 뭘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안 사 가면, 그 역시 가치가 없는 것이다.

54. <노동 시간>이 적게 들어갔어도 그것을 찾는 사람이 많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고 가치도 높아진다.

55. <사용 가치성>이 <노동 시간 가치성>보다 높다.

56. <시대 말씀>도, <주>도 찾는 자가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 고로 <주>도, <시대 말씀>도 전해서 알게 해 줘야 ‘섭리 가치’가 높아진다.

57. <때의 가치>다.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전도해서 데려온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섭리사의 운동 경기’도 보여 주고, ‘시대 말씀’도 전해 주면서 그때마다 증거할 것을 증거하며 가르쳐 주어라.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행사’를 두고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같이 해야 ‘생명이 남는 일’이 되고, ‘흑자를 보는 일’이 된다.

58. <때>를 놓치면 끝나기도 하고, 혹은 다시 또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는 다시 해도 3개월, 6개월, 1년씩 걸린다.

59. 섭리인들 중에서 ‘순간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자가 많다.

60. (성령) 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늘 나 성령을 불러라. 대화하여라.

61. 성령님은 대화를 하실 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시킨 내용’이 ‘말’이 되어 들리게 하신다. 이를 깨닫고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

62. 성령님과 일체 되면,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성령님은 항상 ‘일체 된 자’를 쓰고 행하신다.

63. 좋은 기준의 리듬이 깨지면, 다시 행하기 어렵다. 고로 깨지고 나서 복직하기보다, 깨지지 않게 미리부터 서둘러 관리해라. 이때는 성령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때다. 이때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 리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 거기서 한번 벗어나면 돌아오기 힘들다.

64. <자기 때>에 맞춰 행하기보다, '주의 때, 하늘의 때'에 맞춰 행하여라. 때 지나면, 헛일이다.

65. <자기 때>는 단순하게 맞춰 행하나, <하나님의 때>는 '역사'에 맞춰 연결시켜 행하시니 단순하지 않음을 깨달아라.

66. <자기 때>가 왜 안 왔냐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역사의 때>를 맞춰야 그만큼 크고 위력 있다. <역사의 때>를 맞춰 행하여라.

67. <하늘과 약속한 것>은 내가 어기지 않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일에 동참하시고 이뤄 주신다.

68. (성령) 오늘부터 당장 자세히 맞춰 행하자.

69.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가져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행하지 못해서 못 가져간다. 마치 세상에 많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과 같다.

70. 매일 축복이다. 매일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제대로 행하여라.

71.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것'이 때가 되어 이루어졌어도 깨닫지 못하고, 서둘러 행하지를 못한다. 고로 가치를 상실하기도 하고, 보통으로 행한다.

72. 부지런히 돌아다녀라. <얻을 것>이 많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 것을 오늘 다 잠언으로 줬습니다. 금주는 말씀 중심의 주간이고, 말씀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전쟁터의 무기요,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신령한 양식이요, 말씀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늘 일체 되어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니 오늘도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남의 마음>도, <그가 한 일>도 알아줘야 '자기가 행한 일'도, '자기 마음'도, '자기 심정'도 알아준다.

2. 세상을 보면, 남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일 하기에 바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서는 남의 일을 알아주기가 너무도 어렵다. 고로 이때에 "알아줘야 될 때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3.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남이 한 일도 알아주고 인정해 줘야 하는 시대다." 하셨다.

4. 자기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 일과 그 마음을 알아드려야 된다.

5.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6.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드려야 하나님은 주를 통해서, 혹은 만물을 통해서 더욱 '능력'을 보이시고 '표적'을 보이신다.

7. 지난 40년의 섭리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섭리사 행사를 할 때 항상 비바람을 조종하시면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 이것을 알아드려야 한다.

8. 알아드려야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키신다.

9. 하나님은 그 보낸 자를 통해 수백 번, 수천 번 표적을 일으키셨다.

10.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 때> 선생이 생각하기를, 이곳은 바깥이니 비 올 때나 찬바람이 불 때를 계산하면 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말하기를 아무리 하나님의 자연성전이어도 비바람을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니까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며 자연성전을 알아주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귓구멍이 커지도록 들으면서 자연성전을 지었는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연성전의 지붕’이 되어 주셨다. 고로 비가 올 때는 조종하여 ‘자연성전의 지붕’을 덮어 피하게 해 주시고, 또 겨울에 눈이 올 때는 ‘자연성전의 지붕’을 없애서 스키도 타고 썰매도 타게 해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크고도 크다.

11. 알아야 알아준다.

12. <주>를 알아야 알아주지, <주>를 모르면 몰라준다.

13. 아는 만큼 마음을 알아준다.

14. 사랑하는 만큼 알아준다.

15.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알아드릴 수 있다.

16. <지식>도, <지혜>도 있어야 알아주게 되고, 자기도 겪어야 알아주게 된다.

17. 알아주면 그와 같이 행하게 된다. 심정을 맞추기 때문이다.

18.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신다.

19.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자신이 행한 일’을 말씀하시니, 몰라서 못 하게 되면 안 된다.

20. <알아주는 도>를 깨쳐야 되고, <알아주는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알아주는 눈>을 못 뜨면 절대 몰라준다.

21. <알아줄 자>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22. 제대로 알아주려면,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된다.

23. 알아주고 대해야, 그와 일체 되어 행한 일을 더욱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표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다.

24. <성공 비법> 중의 하나가 ‘행하는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깨닫고 아는 것이다.

25. <성경>을 풀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알아드리게 된다. 그 전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알아드릴 수가 없다.

26. 선생도 성경을 풀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알아드릴 수가 없다. <성경을 푼 자>가 최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아드리게 된다.

27. 하나님은 알아주면 그리도 좋아하신다.

28.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행한 것>을 말해 주고 보여 줘야 알아준다. 그냥은 몰라준다. 사람은 ‘신’이 아니니, 자

꾸 이야기를 해 줘라. <무지하고 미련한 자>는 몰라준다.” 하셨다.

29. 알아주는 데 눈을 떠야 된다. <소경들>은 ‘알아주는 데’ 눈을 못 뜬 것이다.

30.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기를 그리도 원한다. 그런데 몰라준다고 해서 고꾸라질 필요가 없다. 자기 손해다. 선생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끝난다.” 하고서 행했다. 그 말이 맞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시켜도 알아주는 자가 없었다. 나중에는 이를 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내가 알아줬으면 됐다. 알아주었기 때문에 네게 끊임없이 역사한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나도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하셨다.

31. 하나님은 알라고 늘 말씀해 주신다.

32. 행하여 보여 줘야 알아준다.

33. <원한 것>을 해 줘야 알아준다.

34. <남이 못 하는 것>을 해야 알아준다.

35. 처음에는 몰라도, 후에는 알아준다.

36. <자기 주관>에 매여 살면, 자기 이웃과 형제가 행한 것을 몰라준다.

37. 알아줘야 유익이다.

38. <알아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잊어버리면, 기적과 이적을 보여 주지 않는다. ◎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주고, 성령님을 알아주고, 성자를 알아주는 삶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알아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 그와 동행하며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오늘도 열심히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실진대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서로서로 칭찬도 해 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도 인색하지 말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남도 알아주어라.” 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준다 하지 않았느냐. 모두 이런 삶이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위해 육적·영적으로 다 평안과 사랑으로, 신의 능력으로 기도하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보낸 자를 알아줘야 나 여호와가 그를 통해 능력을 보이고 행할 수 있다.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역사를 해서 그에게 혜택을 주고 간다. 모르면, 그냥 지나간다.” 하셨다.

2.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적>이 ‘무지’다. 모르면 매일 당하고 해를 받는다.

3. 선생은 산에서 2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인간의 무지’를 깨달았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땅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고 있다. <모르고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4. <기성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살고 있다. 가령 아기를 잉태할 때 한 달이나 두 달 석 달 정도는 빨리 낳을 수도 있고, 혹은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는 늦게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성>은 1년, 2년, 10년이 넘고, 18년이 될 때까지도 아기 낳기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과 같다. <시대>가 갈수록 ‘맞은 자’는 더욱 확신하고, ‘안 맞은 자’는 더욱 애간장을 태우며 기다린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맞은 자는 확실히 알 것이다. 그러나 안 맞은 자들은 그렇게도 아기를 오랫동안 안 낳을 수가 있냐고 하면서도 믿고 기다릴 것이다.” 하고 깨우쳐 주셨다. 왜 기성에서는 아직도 기다릴까? <때>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다. <때>가 열

마나 확실하고 절대적인 원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5. <때>가 지났으면, ‘확인’해 보고 ‘검사’해 보면 안다.

6. <때>가 되면 나타난다. 나타났어도 모르는 것은 못 봤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하는 자>는 마치 어느 나라든지 해를 등불로 삼고 사는 것이 상식인데도 “다른 나라는 해가 안 뜨고 별이 뜬다. 별과 달이 떠서 해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과 같다.

7. <같은 진리>는 ‘공통성’이다. 누구든지 기침을 하면 똑같이 가래가 나오지, ‘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때>가 됐으면, 모든 만사도 동일하게 때에 맞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다. 더 기다리면 온다.” 한다. 아기를 잉태한 지 3년, 5년, 10년이 되었어도 기다리는 격이다. 이미 아기는 엄마 배 속에서 나와서 커서 돌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식하기 그지없다. 미련하다.” 한다.

8. 한번은 예수님께 그들이 몰라서 심정 타지 않으시냐고 하니, 속상하지 않다고 하셨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맞을 주>가 아니다. <새 시대가 맞을 주>이기 때문이다. <새 시대에 사는 자들>이 ‘주’를 맞으니 사실상은 그들의 복음은 아니다. <팔방미인 신부>가 현 시대 노인에게 나타나겠느냐. <새 시대 젊은 자들>에게 나타난다.” 하셨다. <노인>이라는 것은 ‘나이 먹은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젊은 자>도 ‘나이가 어린 자’가 아니라 ‘정신이 젊은 자, 싱싱한 생각을 가진 자들’을 말한다.

9. <섭리사>에도 나이는 젊으나 ‘게으르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행사 때도 참석하지 않는 노인들’이 많다. 어떤 자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행사 때 못 왔다고 한다. 선생은 40년 동안 역사를 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고, 억지소리를 하고, 괴롭혀도 웃으면서 뛰었다.

10. <사람의 뇌>는 안 받아들이면 100만 명이 와서 괴롭혀도, 10억 명이 와서 괴롭혀도 썩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뇌’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11. <생각 실상 세계>다. <뇌>는 명령하는 대로 돌아가고, 생각하는 대로 돌아간다. <자기 정신>을 가지고 다 주관한다.

12. 사람들을 보면, 누가 자기를 알아주면 열심히 한다. 그러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는 안 한다. 정신이 약해서다.<선생>은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항상 하나님과 같이 행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2개를 하면 4개를 주시고, 4개를 하면 8개를 주시고, 8개를 하면 16개를 꼭 주신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견디고 끝끝내 다 해낸 것이다.

13. <자기>도 알고, <자기 마음>도 알고 다스리고 주관하여라.

14. 자기를 거스르는 말을 했어도 생각으로 꺾어 버려라.

15. 누가 화를 내고 분노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늘 그렇게 보고 대하면 안 된다. 이는 마치 비바람이 쳐서 월명동의 돌들에 때가 끼었는데, 늘 ‘때가 낀 돌’로 보고 대하는 것과 같다. 닦으면, 다시 하얀 돌이 된다는 것이다. <만물의 이치>를 보면서 사람도 ‘때’에 따라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16. 어떤 돌은 닦아도 시커먼 돌이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닦으면 결국 하얀 돌이 된다. 이같이 <사람>도 그러하다. <주>를 믿고 따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도 있고, ‘빨리 순간 되는 자’도 있다. 각종 각색이다. 그러니 빨리 안 돼도 애간장 탈 필요가 없다.

17. <곡식>을 심으면 이삭이 3일 만에 올라온다. 그러나 <인삼>은 6개월 정도 돼야 이삭이 올라온다. 이같이 <사람>도 그러하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어떤 사람은 바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이 가야 반응을 보인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야 한다. 그때가 되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있다. 만드는 데도 오래 걸리고, 쓰는 데도 오래 걸리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18. 모르면, 오해도 생기고 억울한 것이 많다.

19. 모르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도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때가 돼서 왔는데도 행하지 않고, 혹은 행해도 제대로 행하지를 않는다. 그러고 나서 때가 지나간 다음에 “그때 했으면 10배, 20배 했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한다.

20. <모르는 것>처럼 억울한 것도 없다.

21. 알아야 한다.

22. 알고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를 통해 보이시고, 혹은 직접 보이기도 하신다.

23. 같이 행하며 살지 않고서는 그가 하는 일을 알아줄 수 없는 것이다. 같이 행하고 같이 살면 그가 하는 일을 통해 겪기 때문에 알아줄 수 있다.

24.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지 말아라. 오히려 사고 난다.

25.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사고 난다. 네가 그 차를 타고 가니, 네가 사고를 당한다.

26. 알아야, 하늘도 땅도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27. <하나님의 역사>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은 ‘아는 자’를 통해 역사를 펴신다.

28. <행하는 자>를 알아주어라. <잘하는 자>를 알아주어라.

29. <지능>이 낮으면, ‘때’가 지나가도 기다린다. <주>는 심정 타게 보시며 안타까워하신다.

30. <모르는 자>는 기다리고, <아는 자>는 행하며 ‘앞선 시대’에 살고 있다.

31. 똑같이 <현재>를 살아도 ‘아는 자’는 미래 시대를 현재에서 전초를 하며 살고 있다. <과거에 기다렸던 역사>를 지금 행하면서, <미래의 일들>을 지금 전초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32. <역사>도 ‘아는 자의 역사’이고, <하나님>도 ‘아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33. 하나님은 ‘행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셨다.

34. <하나님>도, <주>도 ‘아는 자’에게 주신다. <아는 자>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신다.

35. 알아줘도, 그때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알아주지 말아라. 꾸준히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서 대하며 살아야 너도 그같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되리라.

36.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듯 ‘전능자 하나님’도 대하고, ‘자기를 구원한 주’도 대한다. 그러니 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37. 계곡에 물이 흐를 때 배를 타고 가는 것이다. 물이 떨어지면 맨바닥이 드러나니, 배를 타고 갈 수가 없다. 이같이 <은혜>가 떨어지면, 목적지까지 못 간다. <은혜의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38. 새벽에 기도하는데 영계를 보니,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로 모두 배를 타고 가라고 하며 배를 쫓다. 그때 떠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배는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것이냐?”하면서 서서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맨바닥에 배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거기에 물이 흘렀다고 하니, “마른 땅에 무슨 물이 있었냐?”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시대가 왔을 때>만 보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시대가 지나면 모른다.

39. <시대가 왔을 때>는 “서둘러라. 허리끈을 졸라매라. 빨리해라. 빨리 빠져나가라.” 하는 설교를 계속했지만, 지금은 그런 설교를 안 한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뗃어지는 때’였다. 성자는 가시면서 “이같이 급한 설교는 앞으로 잘 안 할 것이다.” 하셨다. 그리고 성령님도 “이때니까 그렇게 하지, 앞으로는 휴거에 대한 설교가 잘 안 나올 것이다.” 하셨다. 왜? 이미 결혼식을 했으니 결혼식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이미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크고 있으니, 아기 낳을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0. <은혜의 물>이 떨어지면, 사탄이 들어오고 자기 심령이 메마른다. 심령이 메마르면, 자기만 곤고하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다.

41. <은혜의 강>이 마르면, 상황이 달라지고 운명이 뒤바뀐다.

42. <자료>가 풍부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풍부하게 만들지 못한다. <신앙>도 그러하니라.

43. <자료>가 풍부해야 ‘자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44. <신앙>도 ‘자료’가 있으니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다.

45. 차원을 높이겠다고 결심하고 10일, 20일, 30일씩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변화되고 달라진다. 조금 하다 말면, 차원이 높아지다 만다. 끝끝내 음식을 만들어야 ‘음식’이 완성돼서 먹는 것이지, 만들다 말면 ‘음식’이 아닌 것이다.

46.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라.

47. <지금 무엇을 하느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다.

48. 항상 ‘미래’만 생각하고 사니, 때가 와서 이미 했어도 모른다.

49. <과거에 바라고 기도한 것>이 지금 자기 삶 속에서 이뤄지며 살고 있는데도 모른다.

50. <매일 잘하는 자>는 매일 씨를 뿌리니, 매일 ‘기쁨’으로 거둔다.

51. <매일 잘하는 자>는 ‘매일 씨 뿌리는 자’요, ‘매일 기쁨으로 거두는 자’다.

52. 매일 잘해야 된다. 매일 잘하면 매일 거두어들인다.

53. <세상>은 ‘하나님의 시대’를 모르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심’을 모르고 살고 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살다 죽는다. 그러니 얼마나 역울하나.

54. <알고 사는 자>는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살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보람된 일이냐. ◎ 모든 말씀 다 전해 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알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주도 능력을 더 베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알아줘야지, 알아주지 않는데 무엇하러 해 주느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함께하고, 병든 자, 아픈 자에게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되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두 잘 가꾸고 만들게 하시어 하나님이 이 전에 와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께 감사합니다. 민족과 세계와 섭리를 축복하사 날마다 많은 생명들이 말씀으로 감동되고, 꿈에 보이사 꿈을 꾸며 오는 자들도 있게 축복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하게 사고와 해됨 없도록 지켜 주시고,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형통하게 해 준다고 했으니, 그 가치를 알고 감사하며 늘 일체 되어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 생각이 살아 항상 충만한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되게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해 주시고, 자기 중심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하며 항상 살게 이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되기를 간절히 간구 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주>도 알아줘야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가 더 일어나게 하신다. <사람들>도 이와 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다.
2. <진리>를 가르쳐 주었으니, 알아서 대하고 알아서 행하여라.
3.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아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함으로 자기 길을 가니,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다. 고로 <죽음의 역사, 사망권의 역사>로 가 버렸다.
4. <하나님의 생명길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지는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추상적으로도 알 수가 없고, 그냥 감각적으로도 알 수가 없고, 점을 쳐도 알 수가 없고, 세상 어떤 학자라도 알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상상도 못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를 통해 깨우쳐 주신다.
5. <집에 어항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은 ‘연못을 만들어 놓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을 보면 깜짝 놀란다. 그보다 더 큰 세계를 보면, 국가에서는 한 지역을 개발해서 수백, 수천, 수십만 사람들을 살게 해 주는 일을 하니 이를 보고 놀라고 상상도 못 하는 일을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사명 급’에 따라 하는 일들이 다르니, 상상도 못 한다는 것이다.
6. 선생이 하는 일도 보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생각한 일을 하는 것이 거의 없다. 생각 밖의 일이다.” 한다.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종을 들면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7. 선생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행하시는 일들을 봤어도, 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마다 놀란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고, 이것저것 따져 봤을 때 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행하시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면 손가락만큼 행했어도 몸체만큼 행해 주시며 역사해 가신다. - 이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 중의 하나다.
8. <구시대 사람들>은 ‘구시대’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다. 그 희망은 이뤄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뤄 주시지 않는 희망이다.
9. <시대>가 뒤바뀌었는데도 ‘종교’는 뒤바뀔 줄 모른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안다. 자녀는 부인이 될 수도 없고, 남편이 될 수도 없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도시가 뒤바뀌고 시골길이 뒤바뀌듯 <시대>가 뒤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맞게 ‘행하는 것’도 뒤바뀌어야 한다.
10. <상상도 못 하는 일>을 해도 사실상은 잘 모른다. 가령 빌딩을 지을 때도 보면 “빌딩을 지었네?” 하고 보통으로 생각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상도 못 하는 돈이 들어가고, 상상도 못 하는 철근이 들어간다.<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과 비교해 봐야 된다. <사람이 하는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11.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도 스릴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스릴을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된다.
12. 그냥 보면 모르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라.
13. 막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불능하시다. 못 하는 것이 없으시다.” 하고 알아도 안 된다.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된다.

14.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일생 동안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못 한다.
15. 하나님은 <알아주는 자,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16.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사람의 뇌, 생각’에 주셨다. 이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몰라주기 때문이다.
17.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하며 늘 감탄했다. 하나님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늘 만들 때마다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로 다 다르게 만드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상’이 많다는 것이다. 지구 세상 75억 명의 사람들만 봐도 다 각각이니, 그만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18. <월명동을 만든 것>도 보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자세히 보면 다 ‘다른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스릴이 넘치고, 머리에 전기 만 볼트가 오듯이 찌릿하고, 정말로 멋지다.
19. <하나님의 구상>을 보면, 무엇을 만드시는 것인지 잘 모른다. <야심작>도 만들어 놓고도 18년 동안 무엇을 만들었는지 몰랐다. 하나의 자존심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파고들어서 결국 끝장을 봤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백보좌’이다. <하늘의 백보좌>를 상징해서 이를 땅에 실현시킨 것이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늘의 보좌>를 땅에 주리라.” 하셨다. 이를 확대시키면 택한 민족으로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리고 축소시키면 <하나님의 성전들>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이 된다.
20.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나서 움직여도 잘 안 보인다. 고로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작은 것을 갖다 놓으면 표가 나는데, 하나님은 ‘집 자체’를 갖다 옮겨 놓기 때문이다. 그러니 <작은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
2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월명동의 돌 하나도 그냥 온 일이 있느냐? 먼저 찾고, 그다음에 사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쌓아야 되듯이, 나 여호와도 이같이 하나씩 만물을 통해 천지를 창조했노라.” 하셨다.
22. <주>를 알아주지 않으면, <주>가 알아주지를 않으신다.
23. <주>를 알아줘야, <주>도 그를 알아준다.
24. <주>는 ‘구원’이시다. <구원>이 먼저다. 그러려면 먼저 <주>를 알고, 믿고, 따라야 한다.
25. <알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와 관계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26. 몰라주고 말하면, 말씀하지를 않는다. 몰라주고 말하면, ‘말씀의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
27. 몰라주면, 입을 열지 않는다.
28.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알아주지 않는 자’나 ‘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여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왜? 손해가 가기 때문이다.
29. <심정>을 모르고 말하면, 하늘도 땅도 ‘말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30. 배워야 알아주고, 배웠어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주다 만다.

31. 인사성으로 순간만 알아주면 안 된다.

32. 알아주면, 물건도 안 사려다 사 가게 돼서 거액을 벌기도 한다.

33. <물건>도 ‘그 값’을 알아줘야 사 온다.

34. 하나님도 알아줘서 ‘우리의 하나님, 신랑’이 된 것이다. <성령님>도 그러하다. 그런데 기성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다. 이는 자기 엄마를 “아버지의 생각 중 하나다.” 하는 격이다.

35.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알아주고 믿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아줘야 ‘사랑의 신부’가 된다. 몰라주면, “네가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을 다 받는다. 네 때는 이미 지나갔노라. 깨달아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36. <기성>은 ‘때’가 지나갔다. 그러나 미련이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와서 새 시대에서 역사를 펴고 끝났기 때문이다. 다 이루고, 지금은 마치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과 같다.

37.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38. <근심이 많은 자>는 근심으로 ‘주’를 보고, <걱정이 많은 자>는 걱정으로 ‘주’를 본다.

39.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아야 그 능력이 나간다.

40. <시간의 가치>를 알아줘야 ‘시간’도 아껴 쓰고 귀히 쓴다.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밤의 수요일 말씀까지 다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함께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천지를 만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만물의 수백만 가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중에도 지구를 얹어 놓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지가지 수만 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며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일으켜 주시고,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신경 쓰고,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나도 마음에 들고, 너도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나에게 늘 구상을 주시고,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자연성전을 살피는 데 구상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과 아픈 것과 약한 것과 신앙적인 것, 그리고 많은 생명을 구하는 일들과, 은혜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야 될 것, 그리고 관리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나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알아주고, 믿어 주고, 인정해 줘야 하나님은 자꾸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행하심을 밝히시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과 표적을 보이신다.

2.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었다. 왜? 하나님을 믿어 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행해 줘야 하나님도 자신을 나타내시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못 했기 때문이다.

3.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 주니, 더 많은 것을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러나 <믿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따르느냐?” 하면서 오히려 의심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능력과 표적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셨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이 시대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여 주지, ‘믿지도 않은 자들’에게는 보여 줄 필요가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는 마치 허공에 씨 뿌리기와 같다.” 하셨다.

4. <주>는 허공에 발을 내딛을 수가 없다. <주>를 믿고 따름으로 그의 발판이 되어 주고, 그의 첩경을 예비해 주고, 평탄케 해 줘야 된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5.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행하는 것도 ‘사람’이다.
6.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고 생각하면 쉽다. <사람>도 누가 자기를 속상하게 하면, 하고 싶은 일도 안 해 버린다. 칭찬해 주고 알아주고 좋아하면, 능력을 보이고 재주를 보이면서 한다. <짐승>도 마찬가지다. 잘해 주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뛰고 달리면서 표적을 보여 주지만, 그러지 않으면 안 보여 준다. <하나님>도 자신을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맞장구치며 알아주는 자들에게는 늘 애인같이 대해 주시며 한없이 보여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7. <메시아>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모시고, 섬기니 하나님은 그에게 더 보여 주시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신 것이다.
8. 하나님은 허공에 발을 내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구 세상 머나먼 곳에 발길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자, 그의 발판’이 있기에 이것 하나를 보고 발을 내딛고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구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발을 내딛으신다. 선지자들, 중심인물들, 사사들도 모두 ‘하나님의 발판’이었다.
9.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니 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행하심이며 능력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끝끝내 안 믿고 사망으로 가 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쩔 수가 없구나.” 하신다.
10.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늘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런데도 인간이 전혀 자기 책임을 안 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고, “신은 없다.” 하며 무지로 대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신다. 마치 <태양>이 ‘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태양>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떨어지는 별들을 잡아 줄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이다.
11. 하나님은 ‘바늘귀’만큼이라도, ‘실 가닥’만큼이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그 끈을 잡고 놓지를 않으신다. 그마저도 외면하고, 안 믿고, 실 가닥 같은 끈을 끊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은 이 정도 단계까지 보고 행하신다. 더 이상 능력을 보일 수 없을 때까지 하신다. 그런데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으니 어떡하겠느냐. 등을 돌리고 갔는데 혼자 무엇을 보여 주겠느냐. 더 이상 능력을 보여 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12. <예수님>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 거기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믿어 주고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자꾸 나타나시고 한 없이 능력을 행하셨을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니, 예수님은 자꾸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셨다.
13. <거슬리는 말>을 자꾸 하면, 하다가 말을 돌린다.
14. <갈 길> 중에 가장 많은 길이 ‘사람의 말 길’이다.
15. <하나님의 길> 중에 많은 길이 ‘하나님의 말 길’이다.
16. 하나님은 대하는 대로 ‘말 길’을 이리 돌리시고, 저리 돌리시며, 수만 가지로 돌리신다.
17. <길을 돌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다. <주의 잘못>이 아니라 ‘주를 대하는 자의 잘못’이다. <하나님>도, <주>도 대하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다.

18. 지난날의 모든 것을 볼 때도 <시대의 주인>을 두고 이렇게도 알고, 저렇게도 알고 오해했다. <주인>은 상대가 대하는 대로 더 줄 수도 있고, 더 못 줄 수도 있다. - 이는 주인이 정한 대로다.

19. <하나님>은 ‘시대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과 한 몸 된 주인’이다.

20. <하나님>을 믿어 주고, <주>를 믿어 줘야 ‘행하는 일’을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다. 믿어 주지 않으면 있어도 보여 주지 않으시니, 주인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

21.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에게만 그 행위대로 자꾸 나타나시어 엄청난 표적을 보여 주셨다.

22.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알아주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래. 해 줄게.” 하신다. 그 한마디면 일개 나라의 국력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한다. 인간은 뼈가 닳도록, 몸이 닳도록, 지구가 닳도록 해도 5%, 10%밖에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23. <한 사람>만 알아줘도, 하나님은 ‘곧 터지는 전쟁’을 거두신다.

24. <가정>에서도 부모가 아무리 화내고 분노해도 자녀들 중 ‘부모의 심정과 마음’을 한 명만 알아주면 더 이상 그같이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너한테는 내가 꿈쩍을 못 하겠다. 네가 나서면 화난 마음이 일순간에 그냥 없어진다.” 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구촌의 화산같이 터지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자가 있으니, 곧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만 막는다. 다른 사람은 막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오직 ‘사랑’으로 막는다. ◎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25. 1973년쯤, 선생이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였다. 그때는 한창 노방 전도에 불이 붙어서 <시대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다. 한번은 한 공원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유모차를 끌고 나온 한 여자가 있었다. 그때 성령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예쁜 천사같이 보이게 하시면서 전도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선생은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랴.’ 하고 계속 다른 생각만 했다. 결국 전도를 못 하고 주변만 맴돌다가 돌아오게 됐다. 그날 밤, 지나다니는 길을 따라 걸어오는데, 어디서 “사람 살려!”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 보니, 어떤 건장한 남자가 도끼를 들고 여자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 그 남자가 선생을 보고는 “너는 누구냐? 네 놈이로구나!” 하면서 나를 보고 그 도끼로 찌으려고 했다. 그 즉시 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저지시켰다. 얹혀 놓고 보니, 모르는 남자였다. 소리 지르던 사람은 그 남자의 부인이었다. 그런데 불이 켜진 데서 보니, 그 여자는 낮에 공원에서 봤던 여자였다. 남자를 얹혀 놓고, 무슨 일이 있기에 도끼를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말 좀 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큰형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어디서 사람 죽어 가는 소리가 나서 강도가 들어온 줄 알고 뛰어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니 남자는 화를 가라앉히고 미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원래 강원도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서로 사랑했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님이 말려서 결국 이곳 경기도로 도망쳐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둘이 잘 살아 보자고 하며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항상 일을 끝내고 와 보면 여자가 없었다고 했다. 이를 자기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바람피우는 것이다. 그것을 눈치 못 챘느냐? 놔두면 안 된다. 벌써 끝난 것이다.” 하기에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서 도끼를 들고 온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할 때 원고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피고의 이야기도 들어 보듯이 여자의 이야기도 들어 보자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도 알겠다고 했다. 여자는 부부간의 싸움은 아무도 못 말린다는데 이렇게 말려 줘서 고맙다고 했다.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자에게 왜 집을 비웠냐고 물으니, 자기는 남편을 마중나간 것이라고 했다. 찌개도 끓여 놓고 기다리는데 하도 안 오니, 나가서 계속 그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때 여자는 남편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던 때였던 것이다. 그때 전도했어야 했는데 못 한 것을 알고 ‘내 잘못이구나.’ 했다. 결국 둘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서로 오해한 것이었다. 이를 듣고 나도 전짱터에서 서로 오해해서 서로 죽일 뻔했다고 하면서 “극적인 사랑에는 극적인 오해가 있다.” 하고 이야기해 줬다. 오해가 풀리니, 서로 붙잡고 울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잘 살겠다고 했다. 그 후에 들어 보니, 그날 저녁에 자기를 말려 줘서 아내를 죽이지 않고 살았다고 했다. 자기는 의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그 판국에 나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자기 아버지도 옆에 있었는데 못 말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데, 선생이 끼어들어서 해결한 것이다. 이같이 극적인 상황을 많이 겪었다. 깊은 것은 말하지 않지만, 믿어 주고 알아줘야 된다. <믿어 주는 사람>에게는 속 이야기를 해 준다. ◎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이 됐으니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전에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있었던 그날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진짜 다 세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가 도대체 언제? 27살 때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알아줘라. 달달달달 외우지를 않느냐. 하나의 사건인데도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달달달 외우겠느냐. 모두 천재가 될 수 없는데,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그동안 겪었는데 다 외우지 않았느냐.” 27세 때 이야기를 이렇게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옛 이야기도 어제 일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제 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함께하심을 깨닫고 알아줘라. 그러면 자꾸 이야기해 주마.” 했습니다. 오늘도 늘 알아주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일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알아줘라.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니 믿고 행하여라.” 했습니다. 민족도 나를 알아주면 내가 늘 더 해 줄 것인데, 그리 못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몰라주고 심정 몰라주니 이야기 한마디 하마.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품었는데, 몰라주고 원하지 않으니 그 때가 되리라. 그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안타까움의 표현의 결과로 주후 70년,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함락되고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애인 시대 때 하나님은 늘 애인을 통해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이 먼저 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이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 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당세에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감동을 주면 이와 같이 뛰쳐나가서 자꾸 전도하고 자꾸 하도록 하라. 감동 주는 대로 하라.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동 줄 테니 그 대로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 감동이 맞는지 아닌지. 자기 사심인지, 자기 주관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으니, 그것도 분별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들을 축복하니, 잘 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알아줘야 <상대>가 ‘기적’도 일으키고, ‘능력’도 보이고, ‘도울 것’도 돕고, ‘해 줄 것’도 더 해 준다. <하나님>도, <메시아>도 그러하시다.
2. 성경을 보면, 예수님 때도 믿어 주지 않음으로 인해 더 큰 능력과 표적을 보여 주지 않고 떠나가셨다고 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그 보낸 자를 알아주고 믿어 줘야 더 큰 능력과 표적을 일으키신다. 이와 같이 <만물>도 그 가치와 모양과 형상을 알아주고 대하는 만큼, <사람>도 각각 개성대로 알아주고 대하는 만큼 더 능력과 표적을 일으켜서 얻고, 소망을 이루고, 자기 희망도 이루게 된다.
3. <만물>에 대해서 알아주려면, 만물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 가령 <돌>에 대해서 알아주려면, ‘돌’에 대해 한없이 배워야 된다.
4. <돌>이나, <옥>,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강도’별로 등급을 따진다. 등급이 높을수록 강도가 높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이아몬드같이, 금강석같이 ‘몸’도 강하게 되고, ‘머리, 생각’도 강하게 되게 해 달라고 했다. <인생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운동을 해서 ‘육’으로도 강하게 만들고, 또한 ‘영적, 정신적’으로도 자꾸 부딪히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강하게 만들었다.
5. <머리의 강도, 생각의 강도>가 강해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악인들>과 ‘기도’로 싸우고, ‘진리와 의’를 행하여 싸우면서 ‘의의 강도, 선의 강도, 진리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6. <얼마나 진리가 강하느냐>다. <얼마나 하나님의 근본 말씀을 깨닫고 아느냐>다. - 이것으로 ‘강도’를 따지는 것이다.
7. <진리의 강도, 의의 강도, 선의 강도>가 약하면, 가다가 인생의 비바람에 부서진다. <돌>이나 <나무>도 약한 것은 비바람에 깨지거나, 뿌리가 뽑히고 넘어지고 부러진다.
8.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이다. 고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하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말은 ‘참’이 아니니 가다가 없어져 버린다. 고로, <믿고 따르던 자들>도 불신하고 다 끝나 버렸다고 한다.

9.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 때>는 ‘사사’를 보내시고, <중심인물 때>는 ‘중심인물’을 보내시고, 또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어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다.

10. 선생은 배울 때, 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배웠고, 또 실제 세상을 살면서 ‘실제 세계’에서 배웠다. <호미나 팽이, 낫을 만드는 것>을 보면, 쇠를 뜨겁게 달구고 물에 바로 넣기를 반복한다. 이같이 ‘담금질’을 하면서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만들면 풀을 벨 때 부러지니, 쓰여지는 만큼 강도를 조종해서 만든다. 선생은 이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를 깨달았다. <만사의 진리>는 ‘공통성’이다. 그리고 기계 부속품을 보면,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다 쓸 곳이 있다. 이를 보면서 “<인생>도 그러하다. 다 귀한 인생이다.” 함을 배웠다. 그냥 배운 것이 아니다. 예전의 청계천 부속품 가게에 너무나 많은 부속품들을 보며 그 모두가 다 쓰일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같이 실제 보고 깨달으면서 ‘인생’에 대해 배웠다. <교회>도 80군데를 다니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지 배웠다. 많은 교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같은 신약 주관권의 말씀들’이다. 가령 <라면>을 판다고 하면 서로 판이 다르고 맛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라면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 주관권>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왔을 때 판국이 달라졌듯이, <새로운 주관권>은 지구상에 메시아가 다시 와야 판국이 달라진다.’ 함을 알았다.

1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를 가르쳤으면, 그를 통해 만 가지, 십만 가지, 천만 가지를 알아라.” 하셨다. 가령 <여자의 구조>를 배웠으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그와 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대하라는 것이다.

12. <영계>에서 보면, ‘상상도 못 하는 전능자의 뛰어난 원리’를 알게 된다.

13. <세상의 철학>을 보면, ‘관념 철학, 실존 철학’, 그리고 ‘인생 철학, 만물 철학’ 등 존재의 의미를 찾고 하지만 ‘하나님’ 하나 알면 다 끝나 버린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살면, 철학은 ‘하나님께 속한 한 분야’를 공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14. <역사>를 따질 때도 ‘사람들이 따지는 것’과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한번은 생각하기를, ‘20년’에 ‘20년’을 더하면 ‘40년’인데 아무리 따져도 ‘40년’이 안 나오고 ‘36’년이 나왔다. 이를 깨달기를, 가령 종이 두 장을 연결시키려면 ‘겹쳐서’ 연결시켜야지, 종이 끝이 닿게 연결시키면 안 붙는다. 20cm짜리 종지와 20cm짜리 종지를 연결시키려면 겹쳐서 연결시키니, ‘36cm’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도 그러하다. <역사>가 겹쳐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니, 하나님은 “그러하니라.” 하고 말씀하셨다.

15. <역사>는 항상 겹쳐진다. 이는 연결시켜서 튼튼하게 하기 위함이다.

16. <역사>는 ‘동시성’이다. 다만, <새 역사>가 올 때는 똑같이 오지를 않고 차원을 높여서 온다.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다. 마치 한 여자가 죽었는데, 그 여자가 다시 젊어져서 온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내 때에는 못 맞았으나, 너희 때에는 확실히 올 것이다. 기다려라.” 한다. 이는 <막연한 교리>도 아니고, ‘무식한 교리’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자녀들이 저렇게까지 미련할 수 있단 말인가.” 하신다. 모르니 그같이 믿고 사는 것이다. ◎ 무한한 말씀, 끝도 없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읽어 주겠습니다.

17. 하나님의 6000년 종교 역사를 보면, 개인이든지, 시대든지 그 뜻을 알고 믿고 대하는 만큼 더 큰 능력도 표적도 보이시고 그때마다 뜻을 펴셨다.

18.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그도 믿고 행하면 더 큰 능력과 표적을 보이시며 목적을 이행하신다.

19. 하나님과 주께 왜 자기에게는 별로 볼 것도 안 보이시고 대하느냐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보일 것을 보이시고, 기본적인 것을 다 해 주신다. 그 책임을 주를 통해 행하시고, 혹은 직접 행하시니 이를 믿고 알아줘야 된다.

20. <주>를 믿고 알아주고 대해야 능력도 나오고, 표적도 나온다.

21.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여라. 그래야 큰 것도 보여 주시고, 크게 쓰신다.

22.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아줘야 된다. ◎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 끝이 없고 한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줘야 너에게 표적을 보여 주고, 내가 능력도 보여 줄 것이다. 주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믿어 주고 해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칭찬에 인색하지 말고, 믿음에도 인색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알아주는 데도 인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대해 보면, 진짜 나를 안 알아주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러하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특히 동네 사람들, 특히 나를 일반적으로 아는 사람들, 육적으로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형제든, 이웃이든 나를 알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알아주니까 나도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대하니까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모든 기성도 안 알아주니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역사를 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영원하고 영원하기를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또 영적인 사명 이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 하나님의 영영한 역사를 우리가 믿고, 알아주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알아주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주를 알아주고 깨닫고 알고 행하게 해 주시고, 성자를 알아주고 깨닫고 알고 섬기는 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성자의 말씀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를 믿어 주고 알아줘야 ‘능력’을 행해 주시고, 그 환경과 처지에 맞는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
2. 섭리역사 4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대하는 대로 받고, 얻고, 겪으면서 역사를 펴 왔다. 그러지 않았으면 역사를 펼 수가 없었다. 왜?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3.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이상세계를 이루는 시대’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대를 깨닫게 하시고, 대해주시고, 행할 것을 행해 주시고, 능력과 표적을 보이셨다. 그리함으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휴거 역사를 이뤘다.
4.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역사는 끝났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아는 대로 대해 주신다. 이는 마치 큰 댐이 있는데, 댐에 호스(hose)를 연결했으니 그 넓이만큼만 물이 나오는 것과 같다. <파이프>를 가져다 연결한 것도 아니고 댐에 호스를 연결해 놓고 쓰는 입장이다. 우리는 <댐 전체>를 아예 우리 것으로 쓰는 입장이다.
5. <이 시대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은 한도 끝도 없다.<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우리는 삼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신랑으로 대하며 살 때 - 이것이 역사의 끝이라고 볼 수 있다. 곧,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과 뜻>을 이룬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로 대해 주시고 역사를 펴 가신다. 이 역사가 마치 물줄기가 쉬지 않고 흘러가듯 ‘천 년 동안 쉬지 않고 흐르는 역사’가 될 것이다.
7. 하나님은 “이들이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구나.” 하시며 그 뜻을 펴시니, 그로 인해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실 것이다.
8. <과거>에 한 것같이 ‘현재’에도 하시고, ‘미래’에도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 ‘기적의 역사’요, ‘표적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다.
9. 섭리역사 40년 동안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나님은 <섭리사>로 인해 능력을 더욱 보이셨다. 왜? 비유를 들어 말하면, 임금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최고 소원은 사랑하는 자를 택해서 왕비로 삼는 일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면, 다른 것들도 풍부하게 여러 가지로 행해 주고 이뤄 주는 것과 같다. 만일 자기의 최고 목적, 곧 ‘신부를 찾는 일’을 이루지 못했으면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최고 목적>을 이루었으니, 다른 것들도 행해 주고 이뤄 주는 것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보낸 시대 구원자>가 ‘하나님의 최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몰두하고 행하니, 하나님도 그 보낸 자를 통해 능력을 보이고 표적을 보이며 역사해 가신 것이다. 그래서 <섭리역사>는 ‘표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

10. 하나님은 저마다 행위대로 보이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 준다.” 하셨다.

1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조건 - 대가’는 기본으로 주시고, 그 외에 조건을 넘어서 행하면, 그때부터는 풍부하게 주시고 표적과 능력을 행해 주신다.

12. <조건 - 대가>는 ‘기본’이다. 곧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가령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주고 물건을 사 가지고 오는 것은 조건에 대한 ‘기본 대가’다. 이는 지구상의 누구에게나 해당된다. 그러나 <조건 ? 대가>=>를 넘어서 행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풍부하게 주신다. 그 표적과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기본>을 넘어서 행하면, 하나님은 “<내 것>은 ‘네 것’이다.” 하실 정도로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하신다.

13. <자기 것으로 생각하며 좋아하고 사랑하며 대할 때>는 ‘조건 - 대가의 선(線)을 넘은 단계’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

14. 과거에는 ‘조건 ? 대가 시대’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고로 돈을 주고 그에 해당되는 만큼 물건을 사 오는 ‘기본 대가의 단계’를 넘어서 행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면, 농사를 지어서 풍부하게 먹고 마시듯 한다.

15. 지금은 <조건 - 대가>를 넘어서 행하는 시대이니,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준다.” 이 <조건 ? 대가>를 넘어서 행하면, 문을 열어 놓은 것과 같아서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된다.

16. 지난날 하나님이 섭리사에, 그리고 각자에게 행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연을 모두 생각해 보아라.

17. 과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섭리사에 행하신 표적과 능력을 기록해 놓고 보아라.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의 삶’이었다.

18. 하나님은 매일 나타나시어 자신의 몸을 쓰고 행하듯이 ‘사람’을 쓰고 행하신다. 하나님은 늘 함께 살면서 ‘자신의 몸’을 쓰듯 하셨기에 ‘어떤 것만 하나님의 표적이다. 능력이다.’ 할 수 없다. 곧,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하셨기 때문에 삶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다.

19. 일체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의 삶’이다.

20.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은 ‘개인, 가정, 민족, 세계 단위’로 한도 끝도 없다. 그때마다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다.

21. 어떤 것은 ‘하나’만 행하지 않았어도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살려 주셨다. 사람은 실수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부딪혀서 죽기도 한다.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으로 행해 주시어 살려 주셨다.

22. 하나님은 90% 이상 세밀히 인생들을 살피시며 ‘절대적인 조건 - 대가’를 기본으로 해 주셨다. 나머지는 조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시며 해 주셨다.

23. <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고로 사 오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사 오게 하셨다.

24. <시대 신부들>이 원하면, 하나님은 다 해 주신다. <더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해 주신다. 하나님은 안 해 주신 것이 없다.

25. 하나님이 ‘시대 신부들’에게 주신 것이니 ‘자기 것’이다. <월명동 성전>도 그러하다. <자기 것>이니 와서 살피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공원을 지나다니듯이 다니고, 기쁨도 없다.

26. <소유권의 기쁨>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 것>이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27.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이 ‘자기 것’이다. <자기 소유>임을 깨달아야 된다. 고로 부지런히 살피고, 관리도 해야 된다. <월명동 성전>에도 왔다 가지만 하지, 어느 때는 소나무가 벌겋게 됐는데도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도 안 한다. 왜? <자기 소유권>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것>으로 알면, 밤낮으로 그리도 관리한다. 선생은 수만 명이 지나가도 못 보는 것을 본다. <주인>이기 때문이다. 저마다 ‘주인’이 됐으면 선생과 같이 봤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 것>으로 알지 않으니, 그냥 ‘쓰는 정도’다. <주인>이 되면 그리하지 않는다.

28. <주인>이 되어도 ‘자녀권의 주인’이 아니라 ‘신부급의 주인, 애인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걸어 놓고 관리를 한다.

29. <하나님이 보낸 자>가 생명들을 보통으로 관리하면, ‘소유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주관권의 주인>이라면, 목숨을 걸어 놓고 관리하고, 매일 연구한다.

30. <주인>이 돼야 기쁘고 즐겁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달리며 행해야 그렇게도 기쁘다.

31. 모두 <주인>이 되어 행하여라. <주인> 되어 불철주야로 행하며 만든 자의 기쁨이 그렇게도 크다.

32. <만든 사람의 기쁨>, <소유한 사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자꾸 표적과 능력을 보이시면서 ‘소유권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계신다.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의 대하심과 능력과 표적, 오늘도 한 주 동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 들은 것을 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을 넘어서 풍부하게 대해주는 자가 되고, 시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인들이 되어서 역사를 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에 좌정하시사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역 전쟁을 하는 나라들로 인해 많은 주변국들이 타격을 받고 세계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하는 두 나라도 서로 경제 수준이 낮아지지, 높아지지 못한다 했습니다. 평화의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이들 머리 위에 함께하길 간구드립니다. “늘 믿어 주고 알아줘야 표적을 보인다. 어디 가든 생각을 머리에 두고 행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때>, <역사>, <시간> 등을 생명시하여라.

2. <때와 역사와 시간>은 ‘생명’과 같이 동행한다. 고로 <때>를 안 지키면 죽는다.

3. <때>란, ‘기회’요, ‘복’이다.

4. <때>란, ‘분별하는 기간’이며, ‘기회가 존재하는 기간’이다.

5. 지난날 겪은 것을 생각하여라. 그래야 더 은혜가 된다. 저마다 겪은 것을 볼 때 “내가 때를 안 지켜서 많은 것을 실수했구나. 얻지 못했구나.” 할 것이다. <때>를 못 지켜서 얻지 못한 것이 많다. <때를 지킨 사람>만 얻는다.

6. <때>에 얻는다. <때 지나고 얻는 사람>은 없다.
7. <때> 지나면, 천 년을 찾아도 없다.
8. <때> 지나면, 끝난 것이다. 고로 찾을 수도 없다.
9. <때> 지나면, ‘주님’을 찾아도 없다.
10. <예수님 때>도 ‘때’를 놓치니 그냥 지나가고 끝났다. <구시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주>를 못 찾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11. <때>가 지나기 전에 ‘때’를 잡고 ‘주’를 쫓아라.
12. <때> 지나면 안 된다.
13. <때>와 <존재의 현실>이다. <때>에 실제 존재하고 있다. 고로 <때>가 오면 가서 잡아라. <때>는 행해서 잡는 것이다.
14. <때>에 잡아라. <때>에 잡고 행하여라. <때> 지나면 찾을 것도 없다.
15. <때>에 찾고 행하여라.
16. 사람들은 <때>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때>는 계속 존재하지를 못한다.
17. <하나님의 때>는 지구가 돌듯 간다. 고로 지구가 돌아서 자기 앞에 왔을 때, 그때 올라타야 된다. 지나가면 올라탈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시내버스>도 자기 앞에 왔을 때 올라타야지, 버스가 이미 출발해서 달리는데 탈 수 없는 것이다. <계절의 때>도, <자기의 때>도 지구가 돌듯이 가니, ‘제때, 제 차례’에 행하여라.
18. <때>를 맞는 데 있어서 절대 ‘예비’해야 된다. 예비하지 않으면 못 맞는다.
19. <때 지키기>다. <초>를 다투면서 뛰어야 ‘때’를 지킬 수 있다.
20. <때>를 지키려면 예비해라.
21. <때>를 지켜서 ‘때’와 같이 동행하여라. <때>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주’다.
22.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질 때 한번은 성령님께서 새벽에 나를 깨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아라.” 하셨다. 깨서 보니 새벽 1시였다. 조금만 눈을 붙이고 바로 일어나겠다고 하고 눈을 붙였는데 다시 일어나 보니, 2시였다. 그때 성령님을 부르니, 대답이 없으셨다. 그러고서 꿈에 보니 좋은 ‘세단 차’가 없어지고 ‘일반 차’로 바뀌어 있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을 잠깐 붙였다 일어났는데 3시였다. 그때 보니 ‘일반 차’가 없어지고 ‘자전거’로 바뀌어 있었다. <자전거>는 아무리 타고 가도, ‘차’를 따라갈 수 없다. 그 이후로 성령님이 깨우시면 12시 30분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니, 말씀을 계속 주셨다. 그때 한 번에 120개씩 잠언도 쓰고, 설교도 썼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켜라.
23. 자기 행위대로 꿈에 좋은 ‘세단 차’가 보이기도 하고, ‘일반 차’가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리어카’로 보이고, 어느 때는 ‘덤프트럭’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어느 때는 걸어가기도 한다. 자기 행위대로 보여 준 것이다.
24. <때>와 <실상>이다.

25. <때>와 <존재하는 것>이다. <때>에 맞춰 ‘존재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때>를 보면, 버섯이 날 때 버섯이 나지, 때가 아닐 때는 버섯이 안 난다. <나무>도 때가 지나면 물을 빨아들이지 않는다. 그때는 거름을 해도 안 된다. <때>에 맞춰 해야 된다.
26. <일>도 제때 해야 해진다. <과일>도 제때 먹어야 된다. 때 지나서 먹으면 맛이 변해 있다. <음식>도 뜨거울 때 제때 먹어야 맛있다.
27. <말씀>도 뜨끈뜨끈할 때가 맛있지, ‘식은 말씀’은 맛이 없다. <말씀>이 뜨거울 때는 ‘두 번’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겁고, <말씀을 행할 때> 뜨겁다.
28. 제때 해야 해지고, 제때 해야 좋다.
29. 하나님은 ‘때’이시다. 하나님과 일체 되어야 ‘때’를 지킨다. 일체 되지 않으면, ‘때’를 못 지킨다.
30. 하나님은 ‘시간의 때’이시다.
31. 하나님은 늘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때 지나면 안 된다.” 하셨다. 선생이 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해야 된다. 때 지난 다음에 하면,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안 된다. 이미 <때>가 지나서 없다.” 말씀하셨다. 그러니 힘들어도 하라는 것이다. 시험에 들었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해라. 해 놓고 따져 보면,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다.
32. 저마다 ‘때’를 기다린다. <때>는 반드시 오니, 행하여라.
33.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나, 문제는 ‘때’가 와도 모른다는 것이다. <때>는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주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일체 되어 ‘신’이 되어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와 같이 행한다. 그러려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발달, 영적 발달’을 시켜야 된다.
34. <때>가 오면, 제때 행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기다.
35. <때>를 기다렸으면, 모든 것을 제해 버리고 ‘때’만 잡고 원하던 것을 행하여라.
36. <존재의 때>는 ‘아는 자’만 안다.
37.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셨다. 그 <때>를 ‘하나님’으로 알고 지켜야 된다. <때>를 알아라. <자기 때>도 모르면 안 된다. <자기가 쓰이는 때>가 있다.
38. 제때를 모르면, 제때 행하지를 못한다.
39. <때>를 지켜야 ‘때에 맞는 일’을 얻고 누린다.
40. <때>를 못 지키면 ‘자기 때’에 매여 있게 된다.
41. <때>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일’을 못 하니, 하나님은 재촉하고 몰아가고 잡아당기면서 ‘때’를 지켜 행하게 하셨다.
42. <때>가 귀하다.
43. 그 때에 <할 일>을 하면서 ‘때’를 지켜라.
44.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도, 그때 해야 되는 일이 있다. <때>를 지키면서 가야 된다.

45. <시간>을 지키는 것은 쉽다. 그때마다 <할 일>을 하면서 ‘때’를 지켜야 된다. <할 일>을 안 하면서 ‘시간’만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령 <새벽예배>도 ‘시간’은 지켰는데 ‘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말씀>을 깊이 듣고, 귀히 듣는 것이 ‘할 일’을 하는 것이며 ‘때를 지키는 것’이다.

46. <때>는 ‘상대’다. <자기>는 ‘남자’이고, <때>는 ‘여자’다. 혹은 <자기>는 ‘여자’이고, <때>는 ‘남자’다. 이러면서 <때>를 사랑하고 같이 동행해야 된다.

47.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만사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취할 때가 있다.” 하셨다. 이같이 <때>라는 것은 엄격히 있다. 고로 <때>를 보면서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때>에 맞춰 해야 된다. <할 일>을 하면서 극적으로 뛰어와 ‘때의 의미’를 더욱 알게 되고, ‘때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된다.

48. <때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때에 해당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라. ◎ 내일도 또 말씀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금주에 이 ‘때’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꼭 말씀해 주시고, 무한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한 주일 동안 행하여 말씀한 것을 녹화하고, 또한 때에 대해서 책을 쓰겠사오니,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열해서 전체 한 권의 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당세에 우리는 들었지만 후대에게도 줘야 되겠으니 때의 말씀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오늘 때를 잘 지켜서 얻게 해 주시고, 오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때를 따라서 자기 할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육신을 쓰고 역시 하강하사, 이들을 통해서 때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충만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도 성령님도 “<때>를 지켜라.” 말씀하셨다. <때>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듯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3. <시간>도 보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날이니라.” 하셨다.

4. <학교>도 ‘학교 시간’이 있어서 그때에 맞춰 공부를 한다. 그 시간을 안 지키면, 그때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니 다시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5.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하여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시간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여라.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6. 선생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겠다고 하고 24시간을 몽땅 드리고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깊은 말씀도 주시고, 앞날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셨다. 어느 때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하며 어떻게 찾아내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누가 이렇게 됐으니 신경 써서 편지도 주라고 하시며 관리하게 하셨다. 또 어느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노래 가사를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시간을 다 드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대화를 해 주시면서 은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심정 일체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이 돼서 행하게 하셨다.

7. 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의 시간>과 <자기의 시간>이 있다. <자기>가 존재해야 하니,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도 있는 것이다.

9.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듯,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시간의 십일조>다. 이를 지켜야 저마다 희망이 이뤄진다.

10. <시간의 십일조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시간의 축복’을 주셨다. 고로 ‘축지’를 하면서 행한다. <축지>는 ‘빨리 걷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그만큼 빨리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바로 알아버리고, 즉시 시작해 버린다.

11.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비밀이다.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말해 주실지, 혹은 줄 것을 주실지, 혹은 기도하게 하실지, 혹은 병을 고쳐 주실지,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른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행하는 자>만 알게 된다. 고로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라.

12.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평소에 지켜야 된다. 그래야 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로 은밀히 행하게 하시어 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13.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니, 불러다 놓고 가만히 계시지를 앓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은 바로 입을 열어 “잘 있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것을 오늘 해결해 줄게.” 하시며 이야기해 주시고, 반갑게 대해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다.

14. 절대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 행해보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어 행하게 하시고, 원하는 것을 주셨다.

15. <때>와 함께 해결된다.

16. <자기 시간>은 ‘도전의 시간, 과정의 시간’이라 할 일이 많다. 마치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씨름하듯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보다 ‘깨끗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악인들과 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평온한 시간’이다.

17.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가면 평안하게 된다.”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해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민족의 앞날>에 대해 깨우쳐 주시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신다고 하며 말씀해 주셨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세상의 모든 부정, 부패들을 두고 더욱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과감히 행하셨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청산되는 일>을 하셨고, <해소되는 일>을 하셨고, <조건 ? 대가를 치루는 일>을 하셨고, <그때 민족도 사정없이 심판해 버리는 일>을 하셨다.

18. 모르면, 그냥 “고생 좀 했지.” 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런 고통이 또 온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는 ‘보장된 천국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거울삼고 잘 해야 된다. 그러면 ‘평탄한 길’로 계속 가게 된다.

19. <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지난 10년 동안 청산하는 기간에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일어난 일도 많다. 우리나라가 생기고 처음으로 엄청난 동물이 죽는 일도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택한 자, 모세>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무지로 대하니, 하나님은 그때 ‘동물 재앙, 우박 재앙’ 등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그러했다.

20.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르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연의 때를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를 모르느냐.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지금이 그 때다. <때>를 알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하셨다. <때>와 <시대>와 <징조>를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

21. <때>가 그리도 귀하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를 만났을 때>가 중하다.

22. <때>를 지켜 버릇해야 된다.

23. <때> 지나면, 그 주관권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기간이다. 그 기간에 얻지 못하면, 거기서 끝난다.

24. <때 지났는데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자들>을 보아라. 안타깝지 않느냐. 하루에 한 대박에 안 다니는 차가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때를 지키고 얻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을 보아라.

25.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 시작하신다. 고로 그 계산을 못하면 안 된다.

26.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켜 행하여라.

27. <자기의 때>, <시대의 때>, - 이때는 ‘골든타임의 기간’이다. 고로 이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해야 된다.

28. 핍박한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야, 해결된다.

29. <악평자들>이 핍박하고 억울하게 한다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휴거>도 못 이루고, ‘사망’에 묻혔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안 하고, 핍박이 있다고 안 한 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다. 행하고 봐야 된다.

30. <그 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 바람으로 알아야 된다.

31.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의 핍박이 있어도, 그 역시 자기를 다스리면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좋은 날이 왔을 때 영광을 못 누리게 된다.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32.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씨를 뿌린 사람>은 무조건 때가 되면 황금별판을 만들고 만다. 고로 <가을>이 되면 ‘황금별판’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같이 끝까지 한 자>는 ‘황금 천국,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된다.

33. <웁>도 어려움을 참고 견뎌기에 결국 과거에 손해를 본 것을 다시 복직하고 얻게 됐듯이, <이 시대>도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끝까지 했기에 그동안 손해가 간 것을 복직하고, 얻을 것을 얻게 되었다.

34.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못 했다고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주>는 늘 말씀하기를, “주를 믿어라. 그로 인해 너도, 네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다 끝나고서 그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몰라서 그랬지. 네가 먼저 알았으면 목숨 걸고 내게 말해 줘야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고로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 못했으면 자기만 억울한 것이다.

35. 핍박과 환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나. 결국 끝까지 하니, 하나님은 이긴 자들에게 줄 것을 다 주셨다. 안 했으면, <사망권>으로 가서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오기를 잘했다는 것이다. ◎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때를 지켜야 되는지 더욱 깨닫게 해 줬으니, 이들이 때를 지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뿐만 아니라 신앙의 병든 자, 각종 모든 세계를 사고 없는 세계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쫓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을 영광과 뜻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아멘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때를 지키는 자>는 ‘때’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니, ‘때’를 놓치지 않고 한다. 대신, 재촉하고 뛰어야 ‘때’를 지킬 수 있다.

2. <때>를 지키면, 쉽게 잘 된다. 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때>를 못 지키니 힘든 것이다. 마치 <차>

를 타고 갈 것인데 걸어가니 힘들고, 또 <같이 할 것>인데 같이 못 하고 혼자 하니 힘든 것과 같다.

3.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지키는 것이 힘드니, “이렇게 까지 살아야 되나? 때를 안 지켜도 그냥 사는 대로 살았는데...” 한다. <하나님의 때>를 안 지키고 ‘자기 때’만 지켜도 살기는 산다. 고로 나름대로 얻을 것을 얻고 살기는 하나, 그것은 ‘육적 세계의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 - 이를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한다.

4. <때>를 지키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때>를 지키면, ‘자기 주권’을 더 행세할 수 있다.

5. <때>를 지키니, ‘때’라는 힘에 이끌리어 힘들지 않게 하게 된다. 그리고 <때를 지키려는 목적>에 힘내서, 서둘러서 하게 된다.

6. <때를 지키는 맛>으로 뛰고 달려야 된다.

7. <제때>를 못 맞춰서 ‘1초’늦으면, 1000년을 해도 안 된다. 영영 안 되고 끝난다.

8. <앞의 때>에 할 것을 못 하면, ‘뒤의 것’이 제대로 안 된다. <주춧돌>을 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때>를 못 지켜서 <주춧돌>을 못 놓으면, 그냥 땅바닥에 ‘기둥’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제대로 안 된다.

9. 계속 <때>를 지켜 하면, 그다음 것도 척척 이루어진다. 그러함을 깨닫고 ‘때’를 지켜라.

10. 가끔 <때>를 지키면, 마치 ‘가끔 때를 미는 것’과 같고, ‘한 달에 한 번 이를 닦는 것’과 같다. 가끔 때를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11. <때>도 ‘A급 때’가 있고, ‘B급 때’가 있고, ‘C급 때’가 있다. <A급 때>는 ‘제때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B급 때>는 ‘제때가 지난 다음에 늦게 해서 복직하는 것’이다. <C급 때>는 ‘겨우 하기는 하나, 혼자 하는 것’이다.

12. 하나님은 항상 ‘제때’ 하신다. <100명>이 오면 ‘100명’을 데리고 하시고, <1명>이 오면 ‘1명’을 데리고 해 버리신다. 그래서 말씀에도 “<역사>가 시작되면, 10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따라오는 사람>만 가지고 한다.” 했다. <1명>이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13. <예수님 때>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가 얼마 안 됐다. 아주 소수였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역사를 펴 가셨다.

14. 하나님은 <최종적인 것>은 ‘1명’만 알면 그 하나를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신다. 한번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안 믿어 줘서 큰일 났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만 믿어 주면, 하나 가지고 역사를 계속 펴간다. 왜? 하루만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계속 역사를 펴 가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하셨다. 고로 그 말씀대로 지금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역사를 따르고 있다.

15. 가령 잔치를 하는데, 음식을 잔뜩 준비해 댔다 하자. 300인분을 준비해 댔는데, 100명밖에 안 왔다고 해서 잔치를 안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잔치의 핵심>은 ‘신랑과 신부’다. 고로 아무도 안 왔어도 ‘신랑과 신부’가 왔으면 둘만 잔치하는 것이다. 이같이 <섭리역사가 시작될 때>도 그러했다. <메시아> 하나만 하나님께 딱 붙어서 일체 되면, 하나님은 “가자!” 하고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 역사하셨고,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 가지고 역사하셨고, <요셉 때>는 ‘요셉’ 한 사람 가지고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그 하나로 역사를 펴시며 지구촌에 해야 할 일들을 해 오셨다.

16.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놓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은 한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사랑’을 버리고 타락하니, 하나님은 “제 갈 길 가는구나.” 끝내버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니, ‘영

원한 형벌'로 돌아가게 됐다.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17. 하나님은 항상 '제때'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과 같이 하면, 쉽게 이상적으로 하게 된다.

18. <성령님>이 '제때' 감동을 주신다.

19.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강림하시어 역사를 펴시고, '성자'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어 깨닫게 하신다.

20.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즉시 일어나서 행하여라.

21. 그때 그 일을 행하여라.

22. <봄>이 오면 '따뜻함'을 느끼듯, <때>가 오면 '때'를 느낀다.

23. <때>에 대해서 신경 써야 '때'를 맞을 수 있다. 늘 신경 써야 된다. 신경을 안 쓰면, '때'가 와도 모르고, '때'가 가도 모른다.

24. <때> 놓치면 죽는다.<때> 잊으면 죽는다.

25. <힘든 것>도 제때 해야 해진다.

26. 힘들어도 '제때'하기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방법을 달리 해서라도 그때 해야 된다.

27. <제때>를 놓치면, 인생 눈보라 치고, 비바람 불고, 다른 주관권으로 넘어가 버린다.

28.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날, 그때' 잔치를 하기로 했으면 '그날, 그때' 해야 된다. '좋은 날에 해야지.' 하지 말고, <때>가 왔으면 하는 것이다. <섭리사>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창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사랑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환난이 일어나지?'했다. 제때를 놓치면, 이미 신랑 신부는 잔치를 끝내고 여행을 떠나버린 후다. 고로 눈보라가 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제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이다.

29. <무덤기간 때>가 있고, <부활기 때>가 있다.

30. 살아나야 얻을 수 있다. <육적>으로 살아나면,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얻을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영적인 것'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서 여러 가지로 살아나는 대로 얻을 것이다. 고로 <부활기 때>에 무조건 살아나라.

31. <때>에 대해서도 부활되도록 하여라.

32. <무덤기간 때>는 '사탄이 주관하는 때'라서 '사탄 세계'로 넘어간다. <무덤기간>이 끝나면, '부활의 때'가 온다.

33. <부활기 때>는 '자기가 활동하는 때'다.

34. <때>는 이미 와서 서 있는데, 왜 '때'를 기다리고 있느냐. <때>를 계산할 줄 알아라. <구약 4000년이 끝났을 때>는 '메시아'가 땅에 왔다. <신약 2000년>이 끝났을 때도 이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때>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35. <때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잡는다.

36. 뛰고 달려야 '때'와 동행한다.

37. <때>를 다스려라. <때>는 ‘지켜야’ 다스릴 수 있다.

38. <때>를 기도하며 잡아라.

39. <때>를 지키면서, 때를 다스려라. 때에 대해 신경 써야 다스린다. ◎ 말씀 다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때에 대해서 말씀 하셨으니, 때에 대해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는 하나님과 일체 돼서 행할 때, 때를 지키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주가 와서 말씀하니, 같은 인간이라 서로 말이 통하니 잘 일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말이 통하기 힘듭니다. “때를 지켜 행하라. 때 지나면 상대방한테로 넘어간다. 넘어가면, 상대가 그것을 안 사가겠느냐? 사 버리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때를 지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에게 치유하는 광선의 손길을 대다니, 강건해짐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오늘도 사고 해됨이 없게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이들 위에 충만하고 영원하기를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간절히 감사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때>를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때>를 가지고서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3. <하나님의 때>를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 인간 창조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은 도적같이 그 날, 그 때에 이루신다. <그 한 날>은 ‘6000년 종교 역사의 화룡정점을 찍는 날’이다. <알고 맞는 자들>도 있었으나, <모르는 자들>도 있었다. <때>를 모르고 맞기도 하고, <때>가 지난 다음에 맞기도 했다.

4. 할 때 해라. 그때가 ‘그것의 때’니라.

5. <힘든 일>도 제때 하면 ‘때’와 함께 하니 쉽다. 그때는 생각도 잘 나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람도 도우며 함께 한다.

6. <때>에 행해야 하나님도 주도 만날 수 있다.

7. <때>에 와서 만났다. <때>에 해서 만났다.

8. <때> 지나면, 못 만난다.

9. <목적>이 ‘목적’이다. 이 말은, ‘<모든 일>은 결국 목적을 위해서 하니, 고로 목적만 이루면 성공이 아니냐.’ 함이다.

10. <급할 때>는 ‘목적’이라도 꼭 행해라.

11. <때>만 맞춰 했으면, 일단 ‘목적’은 행한 것이다.

12. <사람의 목적>은 영원하지 못하니 허무하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하니 허무가 없다.

13. <영원성이 없는 것>은 허무하다.

14. <영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라.

15. 가령 사랑하는 자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하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와 오래 못 산다.” 하면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와 죽을 때까지 산다.” 하면 그리도 기쁘고 좋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곧 ‘인생 육신의 끝’까지 같이 사니 기쁘고 좋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물건을 쓸 때>도 “빌려 주는 것이다.” 하면 기쁨이 별로다. 그런데 “아예 네 것이다.” 하면 ‘그 기간의 영원성’을 가지니 기쁘고 좋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원성이 없는 것>은 허무하고, 희망을 쏟을 수가 없다.

16. <영원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라.

17. 부귀영화를 누리도 한 때다. 가다 보면 끝나고, 세상의 주권자의 임기 기간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다. 정상적인 세계로 <가장 오래 가는 직(職)>이 있으니, 곧 ‘하나님이 보낸 자, 메시아의 임기 기간’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하니 그 기간이 긴 것이다. <예수님>도 세상을 다하기까지 당세의 핵심기간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계속 쓰셨다. 메시아에게는 당세에 ‘최고 핵심적인 기간’있다. 곧 ‘전반기, 후반기, 부활기’가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주관권의 기간’이 있다.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성약>은 1000년이다. 성약에 보낸 자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면 “그가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리라.” 했다. 천 년이 끝나면, 그 역사의 기간이 끝난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치자로 삼고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서 영원히 그 주관권의 통치를 또 하게 하신다. 고로 “그가 영원히 왕 노릇 하리라.” 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오래 쓰시는 것이다.

18. <작품>도 ‘일생의 최고의 작품’은 ‘일생일작(一生一作)’이라고 하면서 일생 동안 팔지도 않고 최고로 크게 본다. 이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대의 일작(一作)’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보시며 그를 최고로 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펴신다.

19. <때>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다. 시대마다 그가 ‘때’에 와서 행하신다. 고로 그를 따라 하면, ‘때’를 지키는 것이다.

20. <때>를 존재물로 보면, ‘태양 시계, 계절 시계’다. <때>가 되면 해가 떠서 지고, <때>가 되면 계절이 바뀐다. 고로 <태양>도, <계절>도 ‘때’이며 ‘시계’다.

21. <하나님과 일체 된 자>는 ‘인간 시계’다. 그가 ‘때’다.

22. <때>는 빛난다. 왜? <때>가 와서 행하니 빛이 나는 것이다.

23. <때>도 빛나지만, ‘행해야’ 빛난다.

24. <때>를 알아야 ‘소원 성취’가 된다.

25. <때를 못 지키는 사람>은 고장 난 것을 고치듯 고쳐야 된다. <말씀>을 쫓으니, 고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26. <제때 하는 맛>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수준에 해당되는 말씀이니 말씀을 듣고 찬란한 빛을 발하며, 영광을 하늘 앞에 돌리며, 성령과 함께 감동과 감화 속에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자,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건강케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랑의 삶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이 흘러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도의 강이 그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상의 강이 우리의 머리에 늘 그치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전을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에게 생각을 늘 주셔서 흑백을 구분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무엇을 할지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다.’ 하고 분별하게 해 주시고 판단하게 해 주셔서 잘 조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빨도 안 맞으면 씹어도, 씹어도, 잘 안 씹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하고 마는데, 이같이 잘못된 것도 교정해서 제대로 잘 보이고, 하나님이 “됐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이 이들 모든 세계, 각 교회의 지도자들과 시대 섭리 뜻을 펴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사 잘되고 형통하며,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하도록 계속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

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옛날 솔로몬 성전을 지어 놓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과연 지혜의 사람이다!” 하며 감탄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이 제대로 보게 하시고, 또 제대로 가르쳐 주고, 제대로 하도록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깨닫게 한 때>가 ‘그 일을 해야 할 때’다.
2. <지구상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다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때가 왔다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찾고 발견해서 깨닫게 된다.
3. <때가 왔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
4. <주>는 ‘때’다. 그는 이미 ‘때’를 맞고, 알고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시작한다.
5. 미리 시작해야 ‘그 때’에 정확히 시작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정확히 시작할 수가 없다.
6. <완전한 시간과 때>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된다.
7. <미리 한 것>은 100% 맞다. 가령 5시에 말씀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4시 50분에 해 버리면, 그것은 100% 때를 맞춘 것이다. 미리 해야 ‘때’를 정확하게 맞춘다. 이같이 하나님도 <때를 맞출 때>는 미리 하신다. 고로 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된다. 하나님은 더 빨리 시작하신다. 고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라.” 했다.
8. 하나님은 항상 ‘때에 대한 것’은 엄중하게 행하신다.
9. 성령만 쳐다보는 게 다가 안다. 성령님은 감동시켜서 ‘때’를 가르쳐 주신다. 이는 <성령님의 책임>이다. 그러나 <자기 책임 분담>은 ‘자기’가 해야 된다. 마치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지나가는데, 조종사가 ‘탈 사람이 있는가?’하고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과 같다. 준비하고 있다가 비행기가 왔을 때 타는 것은 ‘자기 책임 분담’이다.
10. <때>에 대해 ‘자기 책임 분담’이 있다.
11. 자기가 <때>에 대해 배워서 알고, 성령님께서도 감동을 주시어 깨달았어도, 빨리 안 해진다. 왜? <때>가 왔으나, ‘때를 맞을 준비’를 안 해서다. 고로 ‘때를 맞을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 선생도 축구 할 때 먼저 계속 뛰는 연습을 하고, 발로 차는 연습을 한다. 그때는 성령께서 “볼이 오니, 빨리 준비해라.” 하고 감동을 주시어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서 후에 볼이 오면, 준비한 대로 그대로 볼을 찬다. 이같이 <때>를 제대로 맞으려면, 많은 시간 동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12. <때>가 왔어도, 충분히 준비하고 예비해야 맞을 수 있다.
13. <때>가 오면, 하나님은 선악 간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신다.
14. <때>가 되면, 자기가 행한 것들이 선악 간에 드러난다.
15.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성경에서도 “말세가 오면 드러난다.” 했다. 그 말씀대로 <말세 때>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드러났다. 하나님은 개인, 민족, 세계적으로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심판도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도 많다.

16. <말세>는 ‘구약 4000년이 끝나는 때’다. 그리고 ‘신약 2000년이 끝나는 때’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약시대가 언제 끝나는지를 모른다.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만 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밝히시기 때문이다.

17. 하나님은 <시대의 때>에 정확히 맞춰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을 알고 행해야 하니, 그들에게는 말씀해 주시고 역사를 끌고 가셨다.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은 자기 애인이 아니니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고로 <예수님>도 ‘구약의 종들’은 자녀 주관권이 아니니, ‘따르는 자들, 신약의 자녀 주관권에 있는 자들’에게만 가르쳐 주고 가셨다. 그리고 <성약 때>도 ‘신약의 자녀권에 속한 자들’은 ‘신부’가 아니니 ‘성약 주관권에 속한 시대 신부들’에게만 말씀해 주고 간다.

18. <2000년>은 ‘메시아가 온다는 해’였다. 고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지 아니다. <메시아>는 그 전에 미리 나타나서 인(人)구름을 만든다.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을 지낸다.’고 한 예언대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인 회교 전당을 세운 688년부터 하루를 확대하여 계산한 1290년이 지난 때, ‘1978년도’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난다. 그때부터 시대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면서 인구름을 만드는 것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예정한 때’에 정확하게 나타난다.

19.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러니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천 년, 만 년을 기다려도 그들의 생각대로는 안 오신다. 하나님은 ‘땅의 한 사람’을 쓰고 오신다. <모세 때>는 ‘모세’가 오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왔다. 이같이 <메시아>도 ‘땅’에서 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체’이시니 땅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신다.

20. 하나님은 지구촌의 모든 자들을 사랑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도 감동으로 깨우쳐 주시지만, <본인>이 ‘자기 책임 분담’을 하면서 깨닫고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기 책임>을 못 하면 끝난다.

21. <역사>는 ‘때’가 되면 하되, 하나님은 ‘그 시대 하나님의 주관권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끌고 역사해 가신다.

22. 하나님은 <메시아에 해당되는 것>도 그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네게만 가르쳐 준다. 그러니 너만 뜻을 펴고 가면 된다.” 하셨다. 그때 선생이 하나님께 묻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한 사람’ 가지고 되느냐고 하니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는 아침 한 끼만 먹으면 되지, 두 끼를 먹느냐? 이같이 <한 사람> 가지고 하면 된다.” 하셨다. <때>가 되면서 조금씩 비가 오다가 그것이 물줄기가 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니 ‘댐’이 되듯이,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하나>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역사의 큰 댐’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구름의 역사’가 되었다.

23.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선악 간의 숨은 것들을 드러내신다. <사람>은 못 드러낸다. <메시아>도 사람이니 못 드러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드러내실 때는 ‘메시아’를 통해 드러내신다.

24. <하나님의 때와 법칙의 세계>는 엄격하다. 고로 <때>가 되면, ‘자기가 행한 것들’도, ‘시대가 한 일’도 선악 간에 드러난다.

25. <때>가 되면, 만물들도 드러난다. 고로 <독수리>도 때를 알고 월명동 청기와집 공중을 가물가물 날아다닌다. 지금은 <독수리가 떠날 때>가 아니고 ‘머물러 있어야 될 때’이기 때문이다.

26. <때>는 ‘밝히는 일’을 한다. <요셉>도 ‘자기 때’가 오니, 당세에 자기를 음모한 자들이 다 밝혀졌다.

27. 매일 자기 때를 맞추기 위해 준비하며 살기다. 매일 때를 맞추고 행하기다.

28. <때>가 되면 아름다워진다.

29. <때>를 기다려라. 기다리면, <때>는 ‘하루의 해’가 떠오르듯이 분명히 온다.

30. <때>는 ‘태양같이 밝히는 때’도 오지만, ‘흑암의 별’같이 될 때도 온다.

31. <자기 때>를 기다려라. 한번은 선생이 <기다리느 차>가 안 오기에 “할 수 없다. 그냥 걸어가자.” 하고 걸어가는데, 산을 넘어가다 보니 산 아래에 ‘기다리던 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막차인데 안 오니 기다리다가 결국 100리 길을 걸어갔는데, 나중에 ‘기다리던 차’가 온 것이었다. 이와 같은 날이 오니,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32.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 드러낼 것은 드러내 주시고, 처리도 해 주신다.

33. 계절같이 ‘때’가 온다.

34. <개인의 때>는 저마다 다른 것이다. <책임 분담>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다.

35.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는 ‘같이’ 온다. <하나님의 때>는 계절이 오듯이 ‘신약의 때, 성약의 때’가 동일하게 오지만, <개인의 때>는 저마다 ‘복음을 받는 때’가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고, ‘책임 분담’을 하는 것도 다르니, 다르게 온다.

36. <때>에 대해 배우기만 하지 말고, <때>를 잡고, 다스리고, 주관하여라. <때>를 지켜라. 마치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한참 앉아 있다가 그냥 찬물만 끼얹고 나오는 격이 되서는 안 된다. 반드시 때를 짝 밀고 깨끗이 하고 나오듯이, <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고 끝내지 말고 ‘때’를 잡고 주관하고, ‘때’를 타고 달려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때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때가 오면 좋은 것도 드러내 주고, 때가 오면 너희를 높이기도 한다. 때가 오면 너희를 영광스럽게도 할 것이다. 그 대신 때가 오면, 너희의 모순도 다 말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날에 별거벗은 것같이 드러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깨닫고 알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모든 무서운 때들을 쳐다만 보지 말고 회개하고 없애 버리고 깨끗이 해서,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게 하는 것이 더욱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돼서 밝혀 버린다. 지금은 모든 사람의 행위를 밝히는 시대다. 부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때가 되어 내가 밝히노니, 말씀으로도 밝히면서 때가 됐다고 오늘 아침에 경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일을 날날이 밝히리라 했습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셔서 행했습니다. “모든 의심스러운 것은 내게 묻고 행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때가 되면 밝히리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때가 돼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영육 간에 함께해 주시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1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때’를 지켰나, 안 지켰나 보아라. 1초도 어기지 않고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따져 보지 않으니, 행한 것도 알아주지 못한다.” 하셨다. 따져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1초’도 늦지 않고 6000년 동안 역사를 펴 오셨다. 그러나 사람은 ‘1초’가 아니라, 1분 늦을 때도 있었고, 1시간 늦을 때도 있었고, 하루 늦은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1년, 10년, 100년씩 늦기도 했다.

2.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라. 이 <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이니라.

3.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고 고통에서 벗어나느냐고 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답이 ‘한 때 두 때 반 때’였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언제인지 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풀 것이다.” 하셨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지혜’대로 조금씩 풀었으나,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그에 해당되는 주인이 와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선생은 하나님

게 기도하면서 ‘한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또 ‘두 때’와 ‘반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자꾸 물어봤다. 결국 보니, <때>는 ‘시간, 날수, 달수, 년도’였다. 비로소 <한 때 두 때 반 때>에 대해 깨닫고 알게 됐다.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6개월’이다. 고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6개월’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펴시는 때의 기본법이다. <3년 6개월>을 ‘날’로 계산할 때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달력>은 ‘달’로 만들어서 ‘월삭’부터 ‘만월(보름)’까지, 다시 ‘만월’부터 ‘그믐’까지 하면 ‘30일’이기 때문이다. 고로 <한 달>을 ‘30일’로 놓고 계산하면, <3년 6개월>은 ‘1260일’이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확대하면, 1260년이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운 때>부터라고 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고역 기간, 형벌 기간, 기다리는 기간’이다.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가증한 미운 물건>은 ‘회교 사원’이다. <회교>는 ‘가인에 속한 종의 족속, 가인에 속한 세계’이다. 고로 회교인들이 예루살렘에 <회교 사원을 세운 때>인 ‘688년’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 곧, 1260년을 더하면, ‘1948년’이 나온다. <1948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된 해이다. <지혜>가 없으면, 이같이 풀 수가 없다. 고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만 깨닫고 알리라.” 하셨다.

4. 다니엘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낸다고 했다. 고로 회교 사원을 세운 때인 688년에 1290년을 더하면 ‘1978년’이 나온다. 이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역사를 펴려고 나오는 해’이다. 이때 하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이때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해방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고로 이때부터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는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 새 역사의 세계’가 되었다.

5.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육적 해방>이다. 선생은 우리나라가 ‘육적 해방이 되는 해’에 해방둥이로 태어났다. <육적 해방의 때>에 태어났으니 ‘육적 해방의 역사’도 맞았고, 또 <1978년 영적 해방의 때>부터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시작했으니 ‘영적 해방의 역사’도 맞았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때’에 맞게 다 하셨다.

6. <성약 복음의 역사>는 1978년에 시작했으나, ‘준비’는 그 전부터 해야 된다. 1975년은 ‘세레 요한의 외침이 끝나는 때’다. 그때 영계에서 보니, 기독교와 한 종교가 싸우는데 한 종교가 반기를 들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의 집회에 가 봤다. 군중이 100만 명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물으니, “세레 요한의 역사이니라.” 하셨다. <세레 요한의 역사>가 오면, 곧 ‘메시아의 역사’가 온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3년 6개월을 더하니, 1978년이 되었다.

7.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갈 사람’을 보내 주신다.

8. <시대>가 되면, ‘세레 요한’도 오고 ‘메시아’도 온다. <세레 요한>만 온 때가 없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모세 때>도 모두 세레 요한의 사명을 하는 자가 있었다.

9. <메시아>가 오면, 항상 ‘세레 요한’이 먼저 나타난다. <개인적 세레 요한>, <민족적 세레 요한>, <세계적 세레 요한>이 있다. <세레 요한>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한다.

10. <세레 요한>은 ‘메시아의 발판’이다. 고로 세레 요한도 메시아 노정을 간다. 축복도, 고난도 같이 받는다. 발판인 세레 요한이 죽으니 예수님도 죽었다. 발판이 따로 놓면 안 된다.

11. <이 시대>도 ‘세레 요한 때’부터 깨지니, ‘시대 십자가’를 졌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신이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고통을 받는 ‘환난의 십자가’를 졌다. 그래서 안 죽고 살아난 것이다.

12. <수학>은 공식에 넣으면, 정확하게 답이 ‘하나’가 나온다. <답>이 ‘두 개’는 없다.

13. <한 때 두 때 반 때>를 보면, 작게는 3년 6개월이다. 확대해서 보면 7년, 7년, 7년씩 해서 21년, 혹은 20년도 되고, 혹은 40년, 혹은 42년도 된다. 1978년부터 시작해서 이같이 ‘한 때 두 때 반 때 역사’를 펴 왔다.

14. 지금은 ‘부활기’에 해당되는 때다. 천 년 역사를 두고, 이때 부활을 확실히 시켜 놔야 된다. <부활 기간 때>에 살

아나서, 이때를 확실히 가르쳐 놔야 된다.

15.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면,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다.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미운 것을 세운 때인 688년에서 1335년을 더하면, 2023년이 나온다. <기성>에서는 풀지는 못했어도 이때를 두고 기다리나, 그들의 것이 아니다. <시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새 역사를 펴는 사람의 것이다. 2023년, 이때에는 무슨 역사를 펴 가느냐? 좋은 것이다!

16.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보내기 때문에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하나님의 때’와 딱 맞게 역사를 펴 나간다. <때>가 안 맞으면, 아니다.

17. <때>를 알고 <역사>를 알면, ‘하나님’까지 안다. 고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안다. 지금 하나님은 ‘휴거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18. <역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때’만 지나가게 두지 않으시고 그 때를 따라 ‘일할 사람’을 보내 주신다. <때>가 되면, ‘씨를 뿌릴 사람’을 보내시고, 만물이 성장하면 ‘거두게 할 사람’을 보내신다. 이같이 하나님은 <역사의 때>만 흘러가게 두지 않으시고, 역사의 때에 맞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

19. <때>가 되면, ‘그에 해당되는 만물’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로 때가 되면, ‘살 것’도 사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때>가 되면 사람도 나타나니, 전도해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금년도 한 달 남았다. 계산하여라.” 하셨다. 남은 한 달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해야 된다.

20. <시대>에 따라 ‘사람’도, ‘만물’도 나타난다.

21. 사람은 행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행하신다.

22. <남편>은 행하는데, ‘부인’이 행치 않으면 되겠느냐. <부인>은 행하는데, ‘남편’이 행치 않으면 되겠느냐. 부부는 같이 해야 되듯이,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 같이 해야 된다.

23. <때>가 왔어도 ‘준비’가 안 됐으면, ‘때’를 제대로 못 맞는다. 혹은 맞았어도, 시원찮게 맞는다. 이는 마치 물건을 사러 갔는데,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제대로 된 물건을 못 사 오는 것과 같다.

24. <깨어 있는 자>는 ‘때’를 알고 맞는다.

25. <깨어 있는 자>가 기어코 ‘때’를 놓치지 않고 행한다.

26. <때>를 ‘하나님’처럼 기다려라.

27. <때>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다리듯 ‘때’를 기다려라.

28. <하나님>이 ‘때’다. <성령님>이 ‘때’다. <주>가 ‘때’다. 그러니 끝까지 기다려라.

29. <때>가 왔다. 할 때 해라.

30. <때>를 잊으면 ‘때’가 죽는다. <때>가 왔어도 행하지 않으니, 때가 죽어 버리는 것이다.

31. <때>가 ‘복’이다. <나무>도 ‘때’가 왔는데 손을 못 대면 죽듯이, 이때 손댈 것이 있으면 꼭 손을 대야 된다. ◎ 금주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주의 하이라이트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들이 때를 알고 날마다 뛰고 달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의 때의 대상들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뛰고 달리고, 열심히 일할 때 일을 하여라. 놀지 말아라. 놀 때가 앞으로 곧 온다. 뛰고 달리며 열

심히 해라. 너희는 앞날을 모를 것이다. 눈이 또 쏟아지며, 그때에 창문을 열어 보며 할 일을 다 해 놓고 쳐다보면 보람이 있을 것이다. 다 안 해 놓았으면 그 때 가서 할 수가 없다. 지금 해라. 이제 한 달 남았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랑과 성자의 말씀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서, 때를 지켜 외치며 증거하며, 많은 생명들이 하늘 편으로 돌아오게 하며, 자기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며, 불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모든 각 교회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이라이트 말씀같이 하이라이트 시대를 뛰고 달리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달이라고 해도 역시 연말 때는 일을 못하고, 먹고 자는 시간을 빼면 그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마 17일이나 18일 되겠쥬. “이 기간에 바짝 하이라이트 역사를 뛰도록 하라.” 했습니다. 많은 생명들을 보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사 생명들이 오면 우리는 신나게 외치고 증거하며, 시대를 증거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겠사오니,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리하면 부담되지 않을 것이다.” 하신 대로 그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삼위의 큰 역사와 큰 은혜가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대로 된다.
2. <생각>을 했으면, ‘생각’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생각 실상 세계>다. 고로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된다. 다만 <땅>은 늦게 알 뿐이다.
4. <생각>은 ‘손’과 같아서 생각을 안 하면, 가만히 있다.
5. <생각>은 생각을 해야 시동이 걸린다. <생각>을 안 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고로 <생각의 주인>이 명령을 해야 된다. <명령>은 ‘뇌’에서 한다.
6. 자기 생각을 두고, “생각아!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빨리 생각하자.” 하고서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 <과거의 것>은 그냥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은 명령하고 지시해서 생각하게 해야 된다.
7. ‘보여 줘야’ 생각나고, ‘연구해야’ 생각난다.
8. 하나님이 <뇌, 생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고 다뤄야 된다. 써먹을 줄 모르면 안 된다. <뇌>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9. <생각>은 자꾸 써야 빛이 난다.
10. <외울 때>도 자꾸 글로 써 보고 생각해야 외워진다.
11. <컴퓨터>나 <핸드폰>이 많은 것을 저장한다고 해도, ‘인간의 뇌’만큼) 저장을 못 한다. <뇌>를 써 보아라. <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했고, <컴퓨터나 핸드폰>은 ‘인간’이 만들었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
12. <뇌>에 대해 연구하고, 알고, 써먹어야 된다.
13. <손>이 ‘보이는 뇌’다. <손>이나 <발>에 ‘신경’을 다 깔아 놔기 때문에 뇌를 보지 않아도 ‘손’이나 ‘발’을 보면 안다. <뇌>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4. <뇌>는 ‘신경 덩어리’다.
15. <생각 실상 세계>다. 고로 직접 보지 않아도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쁘고, <신경 쓰이는 일>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16. 손이나 발에 신경이 깔려 있어도 <손>이나 <발>로는 ‘기쁨’을 느낄 수도 없고, 명령도 못 하고, 판단도 못 한다. <느끼는 것>도, <명령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모두 ‘뇌’에서 한다.
17.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 자꾸 연구하고, 계산해 보고 따져야 생각이 발달된다.
18. <몸 발달>보다 ‘생각 발달’이 더 힘들다. 그러나 <육신이 못 하는 것>은 ‘영’으로 해 버리면 된다. <혼>과 <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육신이 안 했어도 얻을 수 있다.
19. <뇌를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함으로 <영적>으로도 써먹고, <육적>으로도 써먹어야 된다.
20.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뇌를 놀리지 말아라.” 하셨다. <뇌>를 가만히 두면, 무의식중에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 같다. <뇌>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계속 구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21. <생각>을 가만히 두면, ‘무의식’에 처해 있다.
22. <손>을 쓰듯, ‘생각’을 써야 된다.
23. <생각 발달, 뇌 발달>을 시키면 무한히 행하여 얻을 수 있다.
24.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자기 생각을 만들고, 생각을 잘 조종하면서 생각을 놀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
25. <생각>을 놀리면, 빈 방아만 돌아가는 것과 같다. 방아에 쌀도 넣고 보리도 넣고 찼어야 되는데 빈 방아만 돌아가는 것이다.
26. <생각 발달, 뇌 발달>을 무한히 시키면서 <뇌>를 주관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정신일도 하고 해야 된다.
27. 생각하기에 달렸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위 절벽을 타기도 하고, 산을 넘기도 하고, 두려움을 없애기도 하고, 걱정과 염려를 끊어 버리기도 한다.
28. <생각>을 하나님과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 생각을 직접 쥐고 하신다.
29. <생각>에 따라 그림도 그리고, 건물을 만들기도 한다.
30. <생각>을 잘못했으면, 성전도 못 샀다. 교회를 살 때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사라고 하셨다. 그런데 한 교회의 여건으로는 살 수 없으니, 별이 뭉치듯 뭉쳐서 하라고 하셨다. 고로 5~8개 교회가 서로 뭉쳐서 교회를 샀다. 이 같이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서 교회를 산 것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못 샀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것이다.
31. <생각>을 잘해야 된다.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밀어붙이며 행해야 된다. <영적으로 할 것>은 기도하며 영으로 행하고, <육적으로 할 것>은 육이 실제 뛰고 달리며 행해야 된다.
32. <생각>을 넓게, 높게 해야 그만큼 크게 얻는다.
33. <영력 있는 생각>이 되게 기도하여라.
34. <생각>을 모아야 한다. <잡생각>은 다 없애고 ‘생각’을 모아서 절대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35. <생각>을 요리하여라.

36. <생각의 칼질>을 하고, <생각의 무기>를 써라.

37. <생각>을 강하게 집중해서 써야 된다.

38. 성경의 역사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 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

39. <인간의 생각>은 항상 짧고, 부족하다. 혹은 완전해도 그 생각이 작으니 효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사과>가 완전해도 작으면 사과로서 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같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머리’에서 완전한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면 완전하지 못하다. 고로 늘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물어라. 왜 묻지 않고 행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와 행하신 일들을 물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니 아신다.” 했다.

40. <생각>으로 ‘초인’ 되고, <생각>으로 ‘의인’ 된다.

41.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의 죄’가 된다. 고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42. <생각>을 ‘사람’으로 보아라. 그리함으로 늘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고, 관리해야 된다.

43. <생각>을 짧게 하여라.

44. <생각의 잠>을 깨워서 부활시킴으로 ‘유능한 생각, 유능한 머리’가 돼야 한다. <신앙의 머리>를 갖춰야 된다.

45. <생각>도 규모 있게 확실히 해야 된다. <규>와 <모>를 갖추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한다.

46. <자기 생각, 정신, 마음>을 다스려라.

47. <자기 생각, 정신, 마음>을 더 좋게, 이상적으로 만들어라.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각’에 대한 것을 말씀해 줬는데, 우리들이 많이 여러 번 배워야지, 한 번 배우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범람하는 엄청난 생각의 세계를 축소시켜서 금주에 말씀을 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실천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면 도움이 안 됩니다. 온 정신을 뭉쳐서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머리로 연결돼서 IQ 130, 140, 150, 160, 170이 아니라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두뇌가 될 수 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오늘도 생각을 축복해 주시고 뇌 자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뇌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겪고 있으니, 모든 병들이 낫고 영적인 일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기를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강건케 해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각들이 뭉쳐서 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서 위치에 따라서 행함이 합당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셨다.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이니,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주>께 맞춰야 된다. 하나님은 주를 통해 역사를 펴신다.

2. <주>가 오면, 복음 안에서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 밖>도 통치한다. 어떻게? 명령하고 “이렇게 돼라.” 하면 그 말대로 된다. 믿는 사람 안에서만 통치하면, 당세 사람들에 비해 만 분의 일도 안 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믿고 따르는 사람>만 통치했으면 소수에 불과했다. <그 민족>을 중심해서 세계 전체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셨다.

3. <기다리던 주>가 오면, ‘기다리던 자들’에게만 목자가 되지 않고 <그 민족의 목자>가 되어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그 민족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한다. <지구상의 목자>가 된다. 우리 민족을 봐도, 이 민족을 중심해서 ‘전쟁 문제’가 좌우된다. 항상 <중심권>에서부터 시작한다. - 이 한 가지만 봐도 너희의 생각과 다르지 않느냐.

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지 않으면, 네 영혼이 죽는다.” 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신다. 왜? 심판을 하기 위해서다. <칼>은 ‘말씀’이다. <말씀의 검>을 가신다. 그 검이 한번 지나가면 끝난다. 고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라.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여 깨끗이 하여라.

5. (하나님) 나는 늘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늘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늘 불꽃같이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불꽃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름이니라.

6. <짝사랑하는 자>가 돌아오면, 그때는 하루 종일 생각도, 눈도 다른 데로 안 돌리고 사랑하는 자만 쳐다보며 좋아한다.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여라.

7. <생각>이 ‘지혜’요, ‘지식’이다.

8. <생각>이 위대해야 된다.

9. <생각>이 훌륭해야 되고, <생각>이 인격적이어야 된다.

10. <주>가 없으면, 휴거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성자를 땅에 보내시고, 성자는 주의 몸을 쓰고 휴거를 시키셨다.

11. <사탄, 마귀, 반대자들>은 항상 ‘하나님과 주의 말’을 반대했다. 한 번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았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사탄, 마귀>는 ‘원수’이니라.

12. <생각>을 주와 같이 모으고 헤쳐라.

13. <사탄, 마귀>는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았을 때 온다.

14. 늘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친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못 한다. 왜? <주>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15.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사랑의 존재자>이다. 그 사랑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이 아주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다.

16.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다’이니라. <생각>에서 나를 늘 극적으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내가 일생 동안 할 말을 다 한 것이니라. 생각에 대한 말이 너무 많아 다 할 수 없다. 끝이 없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다 됐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만 내가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해 주리라. ◎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충분히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받은 잠언 6개로 이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뺏속 깊이, 뇌 속 깊이 명심하고 생활 속에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될지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나서 사탄과 흑암의 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몸이 돼서 늘 사랑으로 뜻을 이뤄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을 축복하니 영육이 잘되고 형통하며,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와 그리고 많은 생명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그 생각이 탁월해서 우리 하나님이 늘 그들의 육체에 임해서 일하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 3.16휴거기념관을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다시 구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겉은 구상해서 했는데, 속은 그때 당시 손을 못 댔습니다. 왜 못 댔는가 보니, 내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때는 겨우 완공을 해 놓고서 3.16 휴거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연고로 여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단상을 손질하고 디자인하고 구상해서 만들자고 하나님과 성령이 말씀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아마 이것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성

령이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 끝내주게 하시니까, 내적 공사는 성령이 맡아야 한다 했습니다.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께 보고 깜짝 놀라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일하는 데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지켜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는 내 생각대로 되노라. 정녕코 되노라.”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생각대로 되어야만 천지 만물과 지구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하고 상상도 못 한 것이 많다. 이를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비유를 들 만한 것이 없노라.” 하셨다. 이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

3. (하나님) 너희도 나와 같이 일체 되면,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그 생각대로 되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까지도 생각대로 되리라.

4. 겪은 것을 말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생각대로 해서 안 된 것이 없다. 선생이 짝사랑을 했을 때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깨우쳐 주기 위해 겪게 하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게 하신 이유의 핵이 있다. 곧, “그들이 속한 교파는 너로 인해 새 역사와 일체 되어야 하는데, 신약의 세례 요한과 같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과 접하고 일체 되어 끝났다. 그들은 시대 세례 요한의 역할을 못 한다.” 함이었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만일 그들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으면, 시대 십자가를 안 졌을 것이다. 그들은 “곧 그가 온다. 너희들이 못 한 것을 그가 와서 한다. 그는 오랫동안 산속에서 수련을 하고 하늘을 깨닫고 나온다.” 하며 기다렸다. 그런데 <주>가 왔어도 무지해서 막았다. 결국 그들이 못 하니, 자체적 세계에서 ‘시대 세례 요한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갔다. <예수님 때>도 세례 요한이 사명을 못 하니, 자체적 세계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례 요한 역사’를 했다.

5. <생각>이 안 맞으면, 못 산다.

6. <주와 생각 맞추기>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생각을 맞춘 것이 된다.

7. 하나님과 생각이 안 맞으면, 못 산다. 휴거를 이뤘어도, 생각이 안 맞아서 못 살면 휴거도 끝나는 것이다. <육신>이 행한 대로다. <육신>이 하나님과 주와 일체 돼서 살지 않으면, 영도 그러한 것이다. 고로 아무리 휴거 1000선까지 올라갔어도 휴거가 깨진다. 왜? 성경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육신이 불신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이다.

8. <휴거>는 됐으니, 이제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 그런데 같이 못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마치 종이가 한 번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끝나는 것과 같다. - 이는 절대 법칙이다.

9. 하나님은 늘 나를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절대 법칙을 알아라. 네가 돌을 집어서 밑으로 던지면, 그것은 네 손에서 끝난 것이다. 모든 만유의 법칙은 동일하다. 이 말씀을 흐리멍덩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것을 안 지키면 뱀이 목을 물듯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러니 지켜라.” 하셨다.

10. <육>이 안 하면, 잠을 자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과는 못 산다. 이와 같이 ‘육신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는 말이다. <육신의 행위>에 따라 ‘그 영의 운명’도 좌우된다.

11. 이성 죄를 짓고, 혹은 자기 행위대로 살고, 혹은 자기 뜻대로 살아서 휴거됐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 이런 자는 육도 영도 결혼했다가 이혼한 것과 같다. 육신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살지 않으니, 그 영도 이혼한 것이다.

12. <육>이 잘돼야 ‘영’도 잘된다. <육>이 안되면 ‘영’도 안된다.

13. <육>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되어 흑암 영계에 속해 있다.

14. <사람들>은 ‘성격’이 안 맞으면 못 산다고 한다. <하나님>은 ‘생각’이 안 맞으면 못 산다고 하신다.

15.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므로 심판하노라.” 하셨다. <생각>을 고쳐야 된다. 안 고치면, 같이 못 산다.

16.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면, 서로 안 맞으면 결국 자기 것이 소모되어 버린다. 자기 것이 병들고, 망해 버린다. <유전자>도 보면 난자와 정자끼리 일체 되어 생명이 잉태된다. 그러나 같은 유전자끼리는 생명이 잉태되지 않고, 결국 죽어 버린다. <약>도 서로 안 맞는 것을 배합해서 먹으면, 쇼크를 일으키고 죽기도 한다.

17. 안 맞으면, 서로 못 사는 것이다.

18. 맞으면, 환경이 나빠도 같이 산다.

19.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된다.

20.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기>다. <자기 생각을 만들기>다. <생각 다듬기>다.

21. 조각가가 조각상을 만들 때, 처음에는 과감하게 잘라 낼 것을 잘라 내고, 점점 예리하게 다듬어서 결국 마지막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 내듯, 이와 같이 <자기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22.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 만들기>다.

23. 생각을 계속 나쁘게 하면, 악한 자가 된다. 고로 그 영도 지옥에 속해 있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보면, 악질이 되어서 지옥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사망’으로 선고를 내리신 것이다. 한번은 하나님께 내가 원수도 사랑하니 그들이 잘되게 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다. 지옥 외에는 없다. 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셨다.

24. 왜 탄생각을 하느냐. 탄생각하지 말아라.

25. 6000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생각>을 ‘삼위일체의 생각’에 맞추는 역사였다. 고로 말씀을 쥐서 실천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다듬고 만들게 했다.

26. <말씀>에 순종하며 항상 <주>를 부르고 살아라.

27. 너희 영이 가 있는 곳을 보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행해야 된다.

28. <삼위의 생각>과 맞추며 6000년 역사를 해 온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기 위함이다. ◎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에 대한 말씀을 늘 주신다고 주일말씀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도 생각에 대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때에 변화를 받고 우리 생각들을 멋있게 만들어서 써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멋지지 않고서는 행실도 멋지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사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육도 영도 소생케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은혜의 강줄기가 마르지 않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전을 잘 청소하고, 손댈 것은 손대며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늘 불같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귀신들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서 잔인한 꼴들을 만드니, 다 없애 버려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마귀가 오고, 생각에서 악령들이 와서 역사합니다.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악령들이 오고, 사탄들이 온다고 했으니, 생각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 맹세코 결심하고 결심하며 온전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두 생각들을 완벽

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 날은 덧과 같이 홀연히 오리라 했습니다. 생각들을 항상 온전히 가지고 있게, 흠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당황하면 안 된다.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 <생활의 시험>을 치를 때도 그러하다. 차근차근, 슬슬, 침착하게 하고, 정신일도 하며, 하나님과 주를 찾으며 해결해야 된다.
2. <신앙생활을 할 때>도, <생활을 할 때>도 가다 보면 어려움에 부딪힌다. 자기가 겪는 어려움은 이미 과거에 성장하면서 배운 것이다. 과거에 이미 배웠어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당황해서 배운 것을 생각에서 꺼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배운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된다.
3. 자기가 주로 인해서 섭섭함을 탔든지, 사랑의 시험이 닦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주를 절대 믿어야’ 된다. 절대 믿어야 시험을 이기지, 그러지 않으면 시험을 못 이긴다.<주를 의심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
4. <생활의 시험>은 계속 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자기 애인을 뺏기게 되니, 그런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시험한다. 왜? 시험에 떨어뜨려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다.
5.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다. 무조건 감사하면 이긴다. 고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
6. 대학교에서도 졸업을 하려면 ‘학점’을 꼭 채워야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학점’을 따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 100점이 돼야 한다. 고로 늘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완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살 수 있다. <완전한 말씀>을 쫓으니, 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지막에는 꼭 해야 된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신부>가 <신랑>의 만족을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했다.
7. <만족>해야 된다. <불만족>은 역시 안 된다.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된다.
8. 무엇이든 100% 해야 된다. 하나님께 ‘사랑’도 100% 해야 된다. 100%를 못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신다.
9. 100% 하면, 시험이 와도 떨어지지 않는다. 겨울이 오기 전에 100% 준비해서 옷을 꺼입고 있으면, 눈보라가 쳐도 “바람아! 불어라! 추운 맛 좀 느껴 보자!” 한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날씨가 왜 이러냐?” 하면서 시험에 들고, 날씨가 따뜻해지기만을 기다린다. 늘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 생각>을 항상 닦아야 된다.
10.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감사하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준 자에게 감사해야 된다. - 이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하는 자는 <감사>에 있어서 100점이다.
11. 늘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다.
12.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사랑’에 시험이 든다. 고로 <사랑이 없는 죄>를 짓게 되고,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상대로부터 기본적인 대함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
13.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사랑, 주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 - 이 사랑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14. 하나님만 사랑해서도 못 살고, 형제만 사랑해서도 못 살고, 혹은 부모만 사랑해서도 못 산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15. <사랑>은 크게 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16.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냥은 모른다. 행하면서 배워야 안다.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정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17. <만물>도 사랑해야 된다. <입>으로만 “좋아한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퇴비도 주고, 겨울이 오면 춥지 않게 싸 주고 묶어 주면서 다독거리고 다스려 줘야 된다. <만물>도 사랑해 주면, 그만큼 자기 빛깔을 내면서 값을 한다.
18.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니, 사랑하는 대로 자꾸 대해 주는 것이다. 그리 해 주니까 그것이 결국 ‘자기 것’이 된 것이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그러하다. 모두 사랑하고 좋아해서 자꾸 가꿔 주니, ‘이상세계’를 만든 것이다. 혼자는 이같이 만들 수가 없다.
19. 하나님께 드리고 바쳐서 ‘하나님의 전’을 만드니,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전>을 늘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봐야 된다. 귀하게 안 보면, 다 해 놓고도 ‘왜 이 골짜기에 만들어 놓았지? 도시에다 큰 교회를 만들지, 공원도 아니고 뭐야?’ 하며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잘못 따져 보고 결국 다른 데 가 있다. 시험에 들어서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많다.
20. 가치를 알고, 귀하게 보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시험에 안 든다.
21. <하나님의 전>은 성경에 크게 예언된 것이다. 선생은 하나님의 전을 땅에 둔다고 한 성경의 예언을 알았다. <아는 사람>이 성취해야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했고, 죽을 고비가 7번, 8번씩 와도 또 했다. 성경의 예언을 이뤄야 되기 때문이다. 이루면, ‘주인’이 된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을 땅에 둔다고 하신 예언을 이루고 성취하였다.
22.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듯이 <자기>도 시대 천 년 역사를 감당해 가도록 ‘육신의 전, 신령한 전, 영혼의 전’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강림하시어 역사를 펴신다. <이 시대>는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놓았다. 가령 자기 애인을 위해 <별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임해서 애인과 사랑하며 살고, 또 <애인>을 만들어 놓으면 그에게도 임해서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셨다. - 이를 <주>가 했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고 가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간다.
23.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가다 없어진다.” 했지만, 선생은 ‘네 것은 없어져도 내 것은 안 없어진다.’ 하고 속으로 자부심을 갖고 했다. <핍박>도, <환난>도 역시 나무가 불타듯이 한때 타고 끝났다. <시험>도 견디면 다 이기는 것이다.
24. 이기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나이가 어린 자라도 견디는 자는 이기고, 어른이라도 끝까지 못 견디는 자는 참지 못하고 포기한다.
25. <주>를 절대 믿어야 시험을 이기고 잘되고 형통한다.
26. <주>께 맡겨라.
27. <주>께 맡긴 것은 ‘주’가 해 주신다. 그러나 안 맡긴 것은 안 해 주신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차고 넘쳐도, 안 맡긴 것은 안 해 주신다. 고로 하나님도 주도 인정하고, 맡겨야 된다.
28.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

29. <사랑>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룬다. 다른 것으로는 못 이룬다.

30. <사랑>하면, 다른 것을 따지지 않는다.

31. 성령님께 깊은 사랑에 대해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시험 문제를 풀듯이 <사랑>도 너희가 풀어서 해라. 네 믿음대로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할 것이다.” 하셨다. 사랑에 대해 물으면, 성령님은 대답을 잘 안 해 주시고, 저마다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신다. 본인이 풀면서 해야 하는 ‘하나님 사랑’이다. 이 사랑에 대해 100% 깨닫고 하는 자는 ‘사랑의 주인’이다. 선생이 제일 잘하는 설교가 ‘사랑 설교’다. <사랑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2000년 만에 하나를 뽑는데, 선생이 사랑에 성공해서 금메달을 딴 것이다. 금메달이 아닌, ‘다이아몬드’ 메달이다.

32. <메시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겠느냐. 최고의 작품을 맡기려는데, 이지가지, 동서남북, 앞뒤 좌우로 얼마나 훑어보았겠느냐. 마지막에 선생이 마패를 받을 때, 100층, 120층 정도 되는 건물을 올라가니 거기에 앉으신 이가 마패를 주었다. 그 마패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셨다. 동그란 접시같이 생긴 어마어마하게 큰 마패를 받았는데, 거기에 <메시아>라고 쓰여 있었다. 하나님은 그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마음놓고 사랑해도 시험에 안 들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미쳐서 사랑하게 만들어서 보내셨다.

33. <하나님과 주가 만족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사랑을 하는 자가 없다. - 이는 하나님이하신 말씀이다. 한번은 하나님께서 속 이야기를 하시기를, “내가 나를 극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쏟아 만족하게 다 해도 나 여호와와는 만족하지 않는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니, “사랑을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위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여라.” 하셨다. 성령님도 지적하시기를, “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역시 뻥속 깊이, 뇌 속 깊이 젖지 못한 사랑을 한다.” 하셨다.

34. 늘 생각 속에 ‘사랑의 불’을 붙여서 행하여라.

35.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의 영혼의 미(美)가 형성된다. 마치 화장품으로 화장해서 예쁘게 하듯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사랑을 가지고 네 영혼을 최고 아름답게 만든다.

36. <성령의 미(美)>는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렇게도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으시다. 성령님은 한때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나 성령이다. <아름다운 것>을 나 성령으로 보아라.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성전>도 나다.” 하셨다. <성령님의 마음>을 보면, 지구 전체를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인격과 품위와 사랑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도 녹이시는 성령님이시다.

37.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면 안 된다. 칭찬해 주면서 잘했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용기를 줘야 된다. -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된다. ◎ 그 외의 나머지 잠언은 내일 또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생각’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넣어 줬습니다. 정신 차리고 모두 깨닫고 알고, 이때에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상세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불을 붙이고, 열심히 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만족은 없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주를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불같이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심이 극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영혼도 미가 완성된다.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도 완성된다. 월명동도 사랑해서 이와 같이 미로 완성을 시키지 않았냐.” 했습니다. 월명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미가, 지상의 전의 미가 극단적으로 아름다워지고 이상을 이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하루의 운명’이 결정된다.

2. 선지자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새벽에 좌정하신다.” 했다.

3. (성령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뛰어야 할 때다. 날아야 할 때다. 독수리처럼 가물가물 하늘 높이 날아라. 주 하나님이 너를 쳐다보며 사랑의 희망을 품으신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오늘도 새벽을 깨워라. 새벽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시간이 없다.

4. 새벽을 안 깨우는 것을 비유로 들어 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 시간에 잠을 자느라 사랑하는 자를 못 만난 것과 같다. 사랑하는 자는 이미 비행기 표를 끊어 놔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때’를 지키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타나시고, ‘때’가 끝나면 사라지신다.

5.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칼날같이 절대 ‘때’를 지키신다. <때>에 대해 예리하시다.

6.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단 한 번도 ‘1초’도 늦게 한 일이 없으시다. 미리부터 하신 일은 있어도 절대 늦는 일은 없으시다. <시간을 어긴 일>이 없으시다.

7.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맞춘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고로 손발을 맞춰 일을 하듯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맞춰 일을 한다. 하나님은 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한 몸이니까. 한 몸이 아니면 못 한다.” 하셨다.

8. <새벽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9. 하나님은 ‘새벽’을 기다리신다. 늘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돼야 한다.

10. <사랑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라.

11. <절대 믿는 생각>을 잊지 말아라.

12. <주의 말씀>을 절대 믿어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신다.

13. <주>는 스스로 말할 때가 있다. <주>는 스스로 해도 ‘하나님의 어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주권>이다.

14. <주가 스스로 하는 말>도 다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그리고 <주의 주권>에 의해 하는 말이니, ‘주의 말’을 절대 믿어라.

15.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는 것이다.” 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가 스스로 해도 괜찮다.” 하고 인봉을 댔다. 왜?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 <신부>는 늘 ‘신랑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신랑이 없어도 한다. 신랑이 늘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제 세계>는 한 몸이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 시대 어느 때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게 묻지 않고 네가 해도 되지 않느냐.” 하셨다.

16. <하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것이 ‘주’로 연결되어 있다.

17. 섭리사는 40년 동안 한국의 전쟁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살았다. 왜?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전쟁은 없다. 내가 강림했는데 전쟁이 나게 하겠느냐.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라.” 하셨기 때문이다. 한때 ‘시대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 판국이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쟁이 있을 수도 있겠다.’하고 생각한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십자가를 지면 쫓값을 대신 치려 주니, 더 확실하게 없어지지.” 하셨다. 그랬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노파심이 없었던 것이다. 1994년, 한번은 곧 전쟁이 나겠다고 하기에 월명동 성지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악한 자들로 인해 죽어야 합니까? 북한의 지도자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당할 수 없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담판을 내 달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

기를, “그들이 하는 짓이 옳지 않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내가 결정했다.” 하셨다. 그리고 나서 21일 후에 누가 내게 말해 주기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고 하며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말해 주기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했다. 하나님은 이를 두고 미리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후에 북한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최고 지도자가 하려고 했던 일을 하기 위해 쳐들어온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미사일’을 쏘 버렸다. 그러고서 며칠 있다가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죽었다. 역사에서 주가 한 일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감행하시니 전쟁이 안 난 것이다.

18. <책임을 지는 생각>을 항상 가져라.

19. <자기가 책임질 것>을 책임지면,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 마치 <나사>는 ‘나사가 해야 될 책임’을 해야 볼트(bolt)에서 빠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

20. <주>는 책임진 것이 많다. 지구촌에 전쟁이 나지 않고 화평의 세계가 되도록 하는 것도 책임을 졌다. 섭리사 안에서 서로 싸우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민족의 전쟁도 없고, 종교의 전쟁도 없어진다.

21. <일>은 ‘책임을 진 자’가 통탄하고 통곡하며 책임을 져야 된다.

22. <끝까지 하는 생각>을 절대 가져야 된다. <사랑>도, <믿음>도, <행실>도 사람이 한번 칼을 뺏으면 강산이 피로 변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다.

23.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하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자는 그 센터에서, 교역자는 교역자 센터에서, 전도자는 전도자 센터에서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리함으로 성공해야 된다.

24. <시대 하와>도 주께 연단받고 20년 동안 다 바쳐서 목숨 걸고 뛰었다. 그러니 <시대 하와>가 나타나는 곳마다 성령으로 뒤집어져 버린다. <시대 하와>는 6000년 만에 나타났다. 귀한 자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렇게 귀하게 본다. 왜? 6000년 만에 딱 하나 성공했기 때문이다. 자기 원한을 풀어 줬는데 작게 보겠느냐. 이를 알아야 된다.

25. <관리>에 대해 절대 생각을 잊지 말아라.

26. <관리에 대한 생각>을 잊으면 죽는다.

27. <사명의 가치>를 귀하게 봐야 된다.

28.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진 자들>을 귀히 볼 줄 모르면, 주가 알아주지를 않는다.

29. <생각>이 살아 있을 때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생각’이 무로 사라진다.

30. <생각>이 살아 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사라진다. <해 놓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고로 무조건 실천해야 된다.

31. 살면서 ‘오늘은 꼭 이것을 표 나게 해 놓아야지.’ 하고 생각해야 표 나게 하나씩 해 놓게 된다.

32. 해 놓고 하나님께도 주께도 보고하여라.

3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늘 해 놓고 대화하며 가야 된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잊지 말고 매일 대화하여라. <신앙의 초보자>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대화하며 통하여라. 스마트폰으로는 그렇게도 불이 나게 통화를 하면서, 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는 대화하지 않느냐? 안 하면, <뇌 스마트폰>이 모두 병들고, 녹슬고, 흑암으로 문힌다. 늘 <뇌 스마트폰>을 써먹어라. ◎ 오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말씀을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께 오늘 하이라이트 말씀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의 사랑이다.” 하셨다.
2. <사랑> 빠진 실천은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울리는 팽과리와 같다.
3. 천 년을 이야기해도 ‘사랑’이다. <사랑> 가지고 산다. 고로 하나님도 이것저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역시 너와 나의 사랑이다.” 하셨다.
4.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환경’이 좋아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니까 자기 애인에게 주려고 돈도 벌고, 좋은 환경도 찾아가는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다.
5. 기도할 때 ‘주’를 빼놓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서 할 일을 하실 때 ‘보낸 메시아’를 빼놓고 하지 않으신다. 항상 개입시켜서 하신다.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주’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6. 하나님도 결정하실 때마다 항상 ‘지구상의 대표’와 의논하신다. <의논>이 없으면, 그 일이 깨지고 파괴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지구상의 대표, 곧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의논하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 행하고, 대신 희생을 당하기도 한다.
7. <주>는 ‘사랑에 대한 설교’는 눈을 감고 해도 잘한다. 왜? <주의 경력>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8. 오직 <시대 주>만 ‘에덴동산의 사랑 인봉,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봉’을 뗐다. <사랑>으로 인봉을 떼니, 정확하게 맞혔다. <정확한 명중>을 시켰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랑’으로 인봉을 못 떼고 ‘과일’로 인봉을 뗐다. 그러면서 “사랑으로 인봉을 떼면 이단이다. 성경을 외람되게 해석한 것이다.” 한다. 그래도 역시 근본은 ‘사랑’이다. 고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이라이트는 역시 너와 나의 사랑이니라.” 하고 말씀하신다.
9. 언제든지 하나님의 하이라이트는 ‘사랑’이다.
10. (하나님) <사랑>을 빼면 너와 내가 같이 살겠느냐? <사랑>을 빼면 나와 같이 못 산다. 나 여호와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낸다.
11. 하나님은 “하이라이트는 <나의 사랑>이다.” 하지 않으시고, “하이라이트는 <너와 나의 사랑>이다.” 하셨다. 왜? 하나님 혼자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남자 혼자 사랑을 못 이루는 것과 같다.
12.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들을 사랑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데는 ‘지옥’밖에 없다. <갈 길>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13. 사랑함으로 ‘천국’ 가게 만들고, 사랑하지 않음으로 ‘지옥’ 가게 만든다. <자기>가 그리 만드는데 있다.
14. <사랑>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15. <사랑>은 참으로 크고 예리하다.
16. <월명동의 돌들>이 무겁다고 하지만, ‘사랑’만큼 안 무겁다. <사랑>은 참으로 묵직하다.

17.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18. <사랑>은 원자폭탄과 같다. 그래서 선생이 산에서 기도할 때 ‘사랑의 원자폭탄, 말씀의 원자폭탄’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19. <사랑의 원자폭탄>을 터뜨렸기에, ‘자기’가 죽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사는 것이다. <씨>가 땅에서 죽고, 거기서 ‘새 싹’이 나는 것이다. <새 싹>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20.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처음 하신 설교도 ‘사랑’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아라.” 하셨다. 곧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옥에 간다.” 함이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 <육적 사랑>은 ‘육신의 세계’로 빠지게 하다가 결국 ‘사망’으로 가게 한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한 것은 죄로 판정된다.

21. <하나님의 주권권에서 한 것>만 죄가 아니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한다.” 했다.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 안에는 어둠도 없고, 미움도 없다.

22. <혼자 사랑>은 해 봤자 ‘자기 사랑’에서 끝난다.

23. (하나님) 너와 나의 사랑이다.

24. 마음 놓고 하나님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지를 않으신다. 그 사랑이 자기에게 그대로 또 온다.

25. <사랑>은 돌고 돈다. <사랑>은 가면, 다시 오게 돼 있다.

26.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27.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신적 사랑’을 그대로 주신다.

28.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다.

29. 하나님은 항상 ‘상대적 사랑’을 하신다.

30.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서는 ‘뜻’을 못 이루신다.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 뜻’이 이뤄진다.

31.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사랑해 오셨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다. 지옥의 문제, 불만의 문제, 무신론의 문제,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학문 등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 고로 하나님은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어 보내셨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배우고 세상에 나온다.

32.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로 본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는 ‘내 사랑, 내 애인’이다. 그를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 것이다.” 하셨다. 그는 ‘사랑의 통로, 사랑의 길, 사랑의 다리’이기 때문이다.

33.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퍼부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34. 가령 한 남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데, 여자가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끝장나는 사랑’이다. 서로 사랑을 해야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만나 모터가 돌아서 불이 붙듯 사랑의 불이 붙는다. - 하나님은 이 같은 사랑을 ‘보낸 자’를 통해 대변하게 하셨다.
35. <진실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다. 사랑을 줬는데 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36.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지만, <인간의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다. 왜? 몰라서 그러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사랑에 대해 가르쳐 준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줬는데도 무관심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살리지 못한 고로 ‘사랑이 없는 세계, 흑암의 세계, 사망’으로 간다.
37. <진실한 사랑>을 살리려면, 자기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육적 사랑, 영적 사랑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38.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왜 자기 마음대로 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자기 몸을 바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39.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된다. 곧 ‘내 하나님, 내 것’이 된다.
40. 사랑했는데 변하면, ‘사망’으로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변했을 때 ‘사망’으로 가는 것은 천륜의 법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가 있느냐? 한번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 보아라. 태양 없이 살면, 하루도 살 수 없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와도 안 죽고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야 된다.
41. 사람 사이의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빚값을 다 받는다.
42. 가령 자기가 살면서 태양을 쓴 것, 지구 세상을 쓴 것, 천지 만물을 쓴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자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 놓고,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빚값을 받는다는 것이다.
43. 사람들은 너무 모른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최고다. 내 세상이다.” 하며 산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런 자를 여지없이 심판해 버리신다. 그러면 그 영이 영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구나. 무지한 짓을 하고 살았다.’ 하고 여실히 깨닫는다. 세상에서 그렇게 큰소리치며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는 도토리만도 못하다.
44.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그리도 크다. 오죽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그 대가를 받겠느냐.
45. 하나님이 사랑해 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가 그렇게도 크다.
46. 일생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았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죄>가 그렇게도 크다.
47. <신앙>을 자유의지가 아니다. 성경에서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지도해 주리라. 내가 너를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리라.” 했다.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자기는 ‘자유의지’라고 해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어 ‘사망’으로 간다.
48. <하나님 주권권에 속하지 않은 것>을 섬기면, 모두 ‘우상을 섬기는 자’다. 혹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자’다.

49.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라. 나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사랑하여라. 그러면 ‘황금성 천국’에 가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며 “나 여호와와 하이라이트는 사랑이다. 너와 나와 사랑이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랑이다. 내가 사랑을 주면 너도 사랑하는 것, 그게 하이라이트다. 짝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냐?”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멋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였으니, 열심히 결심하며 살겠습니다. 해둠과 상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 말씀을 들은 자들과 앞으로 들을 자들과 많은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고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계속해 주시옵소서. “가장 큰 역사는 사랑의 표적이다. 사랑을 통한 역사다. 사랑으로 휴거가 되지 않았느냐. 사랑으로 황금 천국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다른 것으로 차지할 수 없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사랑을 가진 자는 <형제>가 아니다. 진실한 자기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존재자, 사랑의 본체, 사랑의 <신부>다!” 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열심히 배워서 이치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삼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
2. <시간>으로 보면,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때>로 보면, ‘인생’이 더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해야 된다.
3. 집을 짓는다든지, 먼 길을 간다든지, 공사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고로, 이러한 것을 볼 때 시간이 늦기 전에 서둘러서 하라는 것이다.
4. <주가 오는 것>도 사람들은 2000년에 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때>를 맞추기 위해 20년 전에 미리 서둘러서 하셨다. 그리고 성장기, 연단 기간까지 치면 40년 전에 시작하셨다. 그래야 “그가 ‘인(人)구름’을 만들어서 타고 온다.”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먼저 와서 인(人)구름을 만들고서, 나타나기는 2000년도에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상 어떤 것을 하려면, 그 전에 미리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겨우 ‘때’가 맞다.
5. 사람들을 보면, 미리부터 하지 않고 ‘그 날, 그 시간’에 뛰고 달린다. 사람은 ‘시계’가 아니니, 미리부터 해야 된다.
6. 늦기 전에 행해야 된다.
7. <인생>으로 보면, 더 나이 먹기 전에, 더 늙기 전에, 더 힘이 없어지기 전에, 더 눈이 안 보이기 전에, 더 귀가 안 들리기 전에 해라.
8.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요동칠 때 해라.
9. <때>가 되면, 땀줄 소리가 작아진다. 이 말은 ‘입에서 찻는 소리가 작아진다.’ 함이다.
10. <때>가 되면 창문이 어두워진다. 이 말은 ‘<때>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들리는 것도 가늘게 들린다.’ 함이다.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라라.
11. 어릴 때 열심히 뛰고 달리며 건강하게 만든 몸도 ‘지금’ 운동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면, 다 상실된다. 이와 같이 젊었을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뛰고 달린 것들을 지금 안 하면, 그동안 한 것이 소모되어 버린다.
12. <신앙>도 계속해야 유지된다.
13. 서둘러 ‘때’를 지키고 행하여라. 늦기 전에 해라.

14. 나이 먹으면,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뇌의 기억력도 없어진다. 고로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나이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입만 살아 있고, <입>만 살아서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는 것이다. 고로 지금 운동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구상해서 행하고, 교회마다 부서마다 개인마다 시키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연구도 하면서 계속 행해야 된다.

15. 어떻게 주는 밥만 먹고 사느냐? <신앙> 안에서도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알아서 열심히 뛰고 달려라. 나이 먹은 다음에는 더 못 한다. 젊었을 때 서둘러서 할 일들을 척척하여라.

16. <주>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알고 맛있는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해 나가야 지겹지 않고, 계속 새로워진다.

17. 어떤 사람은 새벽예배를 두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새벽예배를 드릴 수 있지?' 한다. <새벽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더 힘들고 고달프다. 잠을 잘수록 더 피곤하고 고달픈 것이다. 왜? <영적인 모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차>는 모터가 돌아가야 쉽게 달릴 수 있는 것이다.

18.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행하여라.

19. 지금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자들도, 앞날에 비해서 지금이 '젊을 때'다. 젊을 때, 청청할 때 해야 된다.

20. <전도할 때>는 전도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하고, <말씀 읽을 때>는 말씀 읽고, <말씀 실천할 때>는 실천하여라.

21. 가만히 있으면, 자꾸 몸이 굳고 뇌가 굳는다. 고로 지금 계속해서 더 뛰는 것이다.

22. 완전하게 하려면, 미리 해야 된다.

23. 가령 10시에 비행기가 출발한다고 하면, 10시 전에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된다. - 이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10시에 와서는 늦다.

24. <미리>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다.

25. 일은 <시간> 때문에 못 하기도 한다. <시간>만 있으면 기술이 부족해도 배워서라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도 혹시라도 실수하면 못 하는 것이다.

26. <승리하는 때, 성공하는 때>가 있다. 이때에는 '시간'이 주름잡고 있다.

27. <시간>을 많이 내야 된다. <하늘에 시간>을 많이 줘야 승리할 수 있다.

28. <시간>을 뺏아서 '말씀'을 배워라.

29. <시간의 승리>는 '삶의 승리'다. '생활의 승리'다.

30. <시간의 승리>를 해야 돈도 벌고, 상대도 이긴다.

31.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이 이긴다. 이를 비유로 들어 말하면, <사탄>은 '6시간'밖에 못 하고, <우리>는 '7시간'을 한다고 하자. 끝까지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더 많아서 결국 뚜껑을 덮는 일을 한다. 이같이 <끝까지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이긴다.

32. 모든 일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해결을 못 한 것이 많다.

33. 미리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으니 누리지도 못한다.

34. <시간>이 없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 와서 “오늘 나랑 같이 놀러가자. 그리고 외국에도 가자.” 해도 못 가는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라는 것이다.

35. 선생이 영적 세계를 보고, ‘지금 많은 시간을 놓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무엇을 놓쳤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행한 자>는 안다. <새 시대를 맞고, 주를 맞은 것>도 맞은 자들만 알지, 그러지 않은 자들은 모른다. <새 시대 주관권>에 와야 그때 아는 것이다. <잠언을 깨달을 때>도 그 전에 올라가야 깨닫지, 그냥은 못 깨닫는 것이다. 이같이 ‘행한 자’만 안다는 것이다.

36. 언젠가는 자기 앞에 황금 같은 복이 와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올 때가 있으리라.

37. <시간>은 ‘백지수표’다.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다.

38. 가령 <돈>을 가지면, ‘빌딩’도 살 수 있고, ‘별장’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다. <돈>을 가지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듯이, 이와 같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39. <시간>을 많이 들여야 ‘대가’가 온다. 그냥은 대가가 안 온다. 왜? <시간>은 ‘돈’이기 때문이다.

40. 선생은 ‘시간의 승리’를 했다. 어떻게? <새벽 시간>을 썼고, 일찍 15세 때부터 산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했다. 사람들이 비웃고 말렸어도 무조건 시간을 잡고 썼다. 결국 승리를 하고 말았다. <시간의 승리>는 ‘실존의 승리’를 가지고 왔다.

41. 미리미리 하고, 늦기 전에 해라. 겨울이 와서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면 달릴 수가 없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열나게 열심히 하고, 시간을 귀히 여기며 미리 빨리 육신이 늙기 전에, 시간이 늦기 전에 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 깨달았사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지켜 행하고, 사망과 죽음이 삼키기 전에, 육신이 더욱 늦기 전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뭘 할지를 모르느냐? 뛰어 보는 자가 알 것이다. 행하는 자가 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섭리사를 지켜 주시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늘 하나님이 함께 지켜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늦기 전에 해라. 늙기 전에 해라.

2. 늙은 후에 하면, 해도 영향이 별로 크지 않고, 어떤 것은 아예 안 되기도 한다.

3. <얼굴>도 주름지기 전에 미리 마사지도 하고, 영양 크림도 발라서 늙지 않게 해야지, 이미 주름이 지고 나면 그때는 주름을 펴기가 10배도 더 힘들다. 이같이 <신앙>도 그러하다. 젊었을 때 할 일을 나이 먹어서 하면 10배도 더 힘들고, 어떤 것은 아예 안 된다.

4. 젊을 때 ‘젊은 얼굴, 젊은 근육, 젊은 피부, 젊은 정신’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실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 마치 한 나라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힘들다.

5. <신앙의 세계>에서도 한번 리듬이 깨지거나 상실되면, 다시 복직하기가 힘들다. ◎ <시험에 들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전해 주겠습니다.

6. <주>가 세상을 구원시키려 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느냐. 그 어려움이 10명 구원시키면 10가지, 100

명 구원시키면 100가지, 만 명 구원시키면 만 가지다. 그것을 <주>가 싸워서 이겨 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진 말도 듣고, 불신의 말도 듣고, 욕도 듣고,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선생은 ‘사람’을 계산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계산했다. <사람>을 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대하면서 싸우니, 늘 웃음과 희망이었다. <사람의 것>을 치니까 ‘시험 거리’요, ‘문젯거리’였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모진 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을 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 쳐다보며 하라는 것이다. 삼위와 일체 되어 한다면, 어려움을 다 이긴다. ◎ 계속해서 오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7. 사람은 ‘형(形)’을 가지고 있다. <젊었을 때의 형체>가 변하면, 늙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신앙>도 ‘형체’가 있다. <젊었을 때의 형체, 처음 사랑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앙 세계>에서 형체가 변했다는 것은 ‘첫 신앙을 잊었다. 처음 사랑을 잊었다.’ 함이다. 고로 사랑을 잊으면, 초대를 옮겨 버린다. 심판을 받게 된다.

8. <신앙의 형체, 사랑의 형체>가 늙어 버리면 안 된다. 한번 늙으면, 다시 복구하기가 힘들다. 항상 ‘젊었을 때의 형체, 처음 사랑의 형체’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9. <신앙>도, <각오>도, <집념>도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

10. <얼굴 형(形)>도, <신앙의 형(形)>도 젊었을 때 얻은 것을 가지고 자꾸 관리하고 행하면서 가야 유지가 된다.

11. <자기 형(形)>을 유지하려면, 매일 뛰고 달려야 된다. 자꾸 관리해야 된다.

12. <신앙의 형체, 사랑의 형체>가 자꾸 달라지다가 아예 늙어서 다른 세계로 떠나 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영계에서 보니, 그 <육>은 젊으나 <영>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다니고 있었다. <신앙의 형체,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는 형체>를 잃은 것이다.

13. <신앙의 형체>도, <몸의 형체>도 잊지 말고 늘 관리해야 된다.

14. <건강>도 젊었을 때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고 자꾸 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건강이 다 소모돼서 늙은 몸이 되고,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다. 늙기 전에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공적’을 세우고, 빛을 발해야 한다.

15.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휴거>를 이루는 것도 ‘사랑’으로 되니, 늙기 전에 해야 된다. <육>도, <신앙>도 젊었을 때다. 늙으면, ‘사랑’도 해가 지고, ‘신앙의 사랑’도 해가 진다. 그러므로 지금 하여라.

16. 지금은 ‘지난날 바라고 원했던 희망이 이뤄지는 때’다. 늙기 전에 행하여라.

17. <때>가 있다. <젊음의 때>가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이때 저마다 할 일을 빨리해야 된다.

18. 젊었을 때 ‘사랑 휴거’다.

19. <휴거 역사>를 봐도 ‘신앙의 절정기’에 시작됐다. 그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5~6시간씩 대화하면서 그때 받은 말씀들을 퍼 부어 주고, 회개할 것을 회개시키고, 단장할 것을 단장시켰다. 그리고 조은 목사를 보내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다. 지구상에 지금껏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 <자녀를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있을지라도, ‘신부로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 이같이 해서 2015년 3월 16일, 정확하게 때에 맞춰서 휴거를 이뤘다. 지금은 그때와 같이 “회개해라. 서둘러라. 빨리해라. 곧 때가 온다.” 하는 설교를 안 한다. 그때는 <젊었을 때, 청춘의 절정기 때>였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20. 계시의 <노래 가사>와 같이 제때, 제 일을 해야 된다.

21. <순간의 기회들>이다.

22.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가 ‘지난날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희망이 이뤄지는 때’였다. 바라던 것을 이미 다 이루고 받았다.
23. <희망>만 바라고 원하지 말고, 지금 때가 왔으니 행하여라.
24. 지난날의 어떤 희망이 지금 왔는지 깨닫고 행하여라. <너희의 희망>뿐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원하시는 희망>도 있으니 그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25. 너희의 희망이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희망이 또 있다. 이것을 깨닫고 행할지어다.
26. 행해야, 늦기 전에 할 일을 깨닫고 안다. 행해야, 늦기 전에 할 일을 깨닫고 안다.
27. 행해야, ‘답’이 온다. <행하지 않은 자>는 ‘답’을 얻을 수 없다.
28. <기도>도 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답이 온다.
29. 행한 만큼 다음에 할 일이 생각나고 보인다.
30. <자기 주관>을 버려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주관’이 생각나고 보인다.
31.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자기 생각대로 ‘길’이 생긴다. 그러니 생각을 온전히 하여라.
32. 하고 싶어도 알아야 할 수가 있다.
33. 기도하면서 깨닫고, 행하면서 깨닫고, 들으면서 깨닫고, 배우면서 깨닫고 알게 된다.
34. 알아도 ‘힘’이 있고 ‘생각’이 강해야 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과 <주의 말씀>으로 ‘힘’을 받고, ‘생각’을 강하게 하여라.
35. <주>가 없으면, 행하여도 ‘희망’이 없다. ‘기쁨’도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 ‘힘’도 없다. <주>가 있으면, ‘천국’이다.
3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항상 ‘사랑의 주체’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의 대상’이다.
37.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없으면, 홀로 찬밥이다. 반찬 없는 식탁이다. 물 없는 사막이다. 환경 없는 삭막한 아파트다. 홀로 서 있는 집이다. 겨울철의 옷 없는 알몸 신사다.
38. 시간상으로 볼 때 ‘늦기 전’이란 ‘젊을 때’를 말한다.
39. <새벽 시간>을 인생으로 따지면, ‘젊을 때’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라고 온 지구상에 있는 신부들에게 말씀했으니, 말씀대로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살이 근육처럼 튼튼하고, 그리고 뼈에 이상이 없도록 뼈에 영양치가 충분하게 들어가듯 늘 말씀으로 확실하게 중심을 지키고 가야 늙는 표가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은혜와 진리가 확실하게 사랑으로 뭉쳐져야 변함없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성자의 말씀이 이들 위에 충만하여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산 자>만이 미리 하고, ‘늡기 전’에 제때 한다.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 이는 <육신>이 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산 자, 정신적으로 산 자>를 말한다.
2. <부활>도 분야별로 있다. <육신의 부활>은 ‘하나’밖에 없다.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부활, 영적인 부활, 정신의 부활, 생활의 부활>은 엄청나게 많다. 분야별로 부활돼서 살아나야 된다.
3. 가령 <새벽을 깨우는 데> 있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새벽 분야’는 죽은 자와 같다. 신앙적으로 볼 때, ‘생활’이 부활되지 못한 것이다.
4. <육적 부활>은 숨만 쉬고 눈만 뜨면 살아난 것으로 보지만, <영적 부활>은 그 정도 가지고 살아났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뛰고 달려야 살아났다고 본다.
5. <산 자>는 더 이상적으로 하고, 더 잘한다.
6. <많이 부활된 자>는 많이 얻고 누린다.
7. 여러 가지로 부활돼야 많은 보람을 느낀다.
8.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다 부활시켜라.
9. 해 봐야 부활된다.
10. <육적 부활>은 ‘한 가지’라면, <영적 부활>은 분야별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다.
11. 아직까지도 자기 분야에서 부활되지 못한 자가 있다. 무엇이 부활되지 못했는지는 극적으로 뛰어 봐야 안다.
12. <건강>에도 분야가 많다. 가령 간이 안 좋으면, 그로 인해 다른 지체들도 죽는다. 어떤 사람은 ‘암’ 하나 때문에 30년, 50년 더 못 살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나. 그래서 <건강>도 100% 다 부활시켜야 된다. 위 부활, 대장 부활, 뇌 부활, 청각 부활 등이다.
13. <뇌>가 무감각하면 죽어 있는 것이다. 총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부활시켜야 된다.
14. <부활>은 ‘말씀’으로 된다.
15.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활시키셨다.
16.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다. <죽은 군인들의 육신>이 부활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행위가 살아난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영계에서 본 대로 외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나고 행위가 살아났다. 역시 <영적 부활, 신앙적 부활>이었다.
17.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이 ‘육적 부활’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육적 부활’이 아니다. <영적 부활>이다.
18.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절대 ‘육신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친다. 왜? <육신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는 것이다.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 살아서 재림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육신 부활이 그들의 소망이니, 이같이 가르친다.<핵>을 모르니, ‘전체’를 모른다.
19. 사도 바울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였다. 곧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고, 영이 살았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다루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육신을 본 게 아니라 그 영을 보았다. 살았을 때 못 보고 죽고 나서 만났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단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것도 ‘영적 부활’이다. <육적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안 온다.

20. <영적 부활>이라야 영원하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실상’이 되어 누리게 된다.

21.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쓰고 역사하신다. <새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육신’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영>이 와서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임한다. ‘성자’가 와서 그를 통해 행하신다. <성자>는 ‘예수님의 영’이 아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 지구의 구원을 맡았는데, 그분이 곧 ‘성자’다. <성자>가 오셔서 휴거 역사를 다 이루고 가시면서, <땅의 성자>에게 “내 일을 내게 맡기고 간다.” 하고 하늘 보좌로 가셨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하고 계신다. 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못 놓으시고, 혹시 사탄이 멸할까 봐 오셔서 역사해 주고 계신다.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두고 ‘영의 엄마’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여성 신>으로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의 존재자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나와 같이 한다. 혹시 사탄이 쫓아올까 걱정 말고 해라. <성령의 법>에 의해 다 차단된다. 내가 있으면 됐다.” 하셨다. ◎ 수요일에 말씀까지 다 전해 줬습니다. 끝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줘서 “일어나라. 에스겔 골짜기가 부활되듯이, 섭리의 골짜기가 다 부활이 돼라. 살아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라고 나를 통해서 말씀했으니, “살아나라!” 각 분야별로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부활을 시키는 데 특히 살아나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멋있게 장식하고, 2018년도 멋있게 장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사랑과 공의가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크시고,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 내에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어 부활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빠르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늦다. 고로 더 뛰어야 된다.
2. 사람들은 항상 늙는다.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늙고 있다. 그러므로 매일 부지런히 할 일을 해야 된다. <빨리 하는 것> 밖에 없다.
3. <사람>은 성장기가 끝나고부터는 늙어간다. 매일 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늙어간다. <꽃이 폈다 지는 과정>을 보면, 매일 ‘꽃이 지는 표’가 난다. 물기가 마르고 주글주글해진다. <뜨거운 물>도 보면, 물을 끓이다가 내려놓았을 때부터 ‘식은 기간’이다. 온도계로 재보면 표가 나게 온도가 내려간다. <해가 질 때>도 2시가 넘어가면 바로 표가 난다. <차로 목적지를 갈 때>도 ‘남은 거리’가 표가 나게 줄어든다. 이같이 사람도 누구든지 ‘인생 늙는 것’이 확실하게 표가 난다. 고로 늙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4. <차>도 관리를 잘하면 ‘30년 된 차’라도 잘 가듯이 <신앙>도 관리를 잘하면 ‘젊은 신앙’을 하는 것이다.
5. 인생을 보다 빨리 뛰며 사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이 멈춘 것과 같다. - 이 말은 태양이 실제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행한 시간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다. 시간을 안 가게 하는 방법은 ‘빨리 뛰는 것’이다.
6. <젊었을 때의 1년>은 ‘나이 먹었을 때의 10년’과 안 바꾼다. 선생도 보면, 선생이 15세 때부터 하나님은 밀어붙여 썼다. 그때부터 늦기 전에 뛰고 날며 행하다 보니, 어디 가서 편히 쉴 시간도 없었다.
7. 한번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생>을 계산하면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 <일생>을 ‘하루’로 축소시켜 보자.” 하셨다. 고로 <일생>을 ‘하루’로 두고 살아보니, 새벽 4~5시에 일어나서는 그날의 할 일을 못하고 해가 졌다. 3시에 일어나도 안 됐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1시에 일어나니 그날 일을 다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날마

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최대로 아껴 쓰면, 80세까지 할 것을 50세 안에 다 끝낼 수 있겠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세>를 하루를 두고 계산해 보면, 새벽 '1시'쯤 된다. 인생 일생이 마치 '하루 해'같다. 20년 동안 배우고, 40년 동안 행하여 총 60년 동안 해서 '하나님이 성자를 이 땅에 보낸 지 70년'만에 끝냈다. 빨리 했기에 이와 같이 역사를 펴서 끝장을 본 것이다. 끝나고서도 지금도 청청하게 달리고 있다. <나머지 기간>은 특별히 투자하는 것 없이 '흑자의 삶'을 사는 기간이다. 빨리 뛰니, 지금은 <황금벌판의 세계>를 달리고 있다. 그곳에는 보물들이 그냥 널려 있다. 그런 세계를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성자가 직접 육신을 쓰고 행하셔서 이같이 빨리 된 것이다. 사정없이 뛰고 달리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춘 것이다. 배우는 기간 20년 동안 달리고, 공적 기간 40년을 달려서 총 60년 동안 일을 한 것이다. <6수>는 '끝나는 시간'이다. 섭리사도 이같이 뛰어야 된다.

8. 젊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젊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다.

9. 무엇을 할지 네게 매일 말씀을 줘서 가르쳐 주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10. <그날 일>을 그날 안 하면, 밀리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

11. <그날 일>을 그날 안 하면, 다음 날이 오더라도 더 어려워져 못 하게 되고, 더 조건을 세워야 하게 된다.

12. <지혜>란 '제때 하는 것'이다.

13. <늦기 전에 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자>다.

14. <미련한 자>는 할 때 못하고, '때 지나서 할 수 없을 때'에 하려고 한다.

15.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요, '지식 있는 자'요, '명철한 자'다.

16. 행하면, 문제도 해결된다. 무조건 행하여라.

17. 하나님은 '주'와 행하신다. <주>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같이 행하여라. 그때가 '때'니라.

18. 행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너희가 이미 생활 속에서 경험한 바가 아니냐.

19. <금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을 금주에 행하여라. <늦기 전에 행함>이다. <늦기 전에 행함>이다.

20. 기도하면, 성령께서 '할 일'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21. 모르면,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행하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보고 깨닫고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일도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중계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온 민족과 세계가 잘되고 형통케 하시되, 하나님을 섬기고 좋아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계급 있는 자든, 권세자든, 명예가든, 누구를 막론하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경의 약속대로 행하고 있는 때이니, 하나님을 찾고, 보낸 자를 찾고, 구원자를 찾고 행하여라. 오늘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할 일을 부지런히 하게 해 주시고, 영광으로 하나님이 원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부들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손 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오니 시험에서 빠져서 허우적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잘되고 형통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의롭게 하며 참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대로 자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기를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삼위와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23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부지런히 사는 자>가 늦기 전에 행하고, 인생 더 늙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다.
2. <부지런한 자>는 ‘빨리하는 자, 제때 하는 자’다.
3. <게으른 자>란 ‘행하지 않는 자’다.
4. <게으른 자>는 행하여도 늦게 행한다. 어차피 행할 것이면, 빨리 행하여라.
5. 게을러서 자기 복을 뺏기고, 가난하게 된다. <육>으로도 가난하게 되고, <영>으로도 가난하게 된다.
6. 게으르면, 그 영향이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간다.
7. <게으른 자>는 이유를 대면서 안 한다. <게으른 주관, 게으른 철학>을 이유로 들면서 안 하고, 해도 “빨리 행하나, 늦게 행하나 하기만 하면 된다.” 하며 늦게 행한다. 그러나 그때는 <먼저 행한 자>가 ‘좋은 것’을 이미 다 사서 가 버린 후다.
8. <알파의 시간, 처음 시간, 처음 신앙, 처음 것>을 뺏기지 않은 자가 ‘부지런한 자’다.
9. <게으른 자>는 ‘게으름’으로 인해 땅에서도 ‘사망권’에 처해 살고, 그 영도 ‘사망권의 삶’을 살게 된다.
10.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습관, 버릇’을 들이기에 달렸다.
11. 무엇이든지 ‘60일’ 정도 계속하면 습관이 든다. <뇌>도, <생각>도, <지체>도 ‘습관’이다. <부지런한 것>도 마찬가지다. 60일 정도 부지런히 행하면, 부지런해진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
12. <좋은 것>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은 버려라.
13. <습관>이 되면 쉽다. <새벽예배를 드리는 것>도 습관을 들이니 때가 되면 일어나지고, 교회에 가고 싶어진다. 이는 ‘좋은 습관’이다. 새벽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말씀을 안 듣는 것이 편하고 자기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들어야 더 많이 깨달아진다.” 하고 이유를 댈다. 이는 ‘잘못된 습관’이다. 비교할 때는 항상 ‘원리, 원칙, 절대성’에 대고 비교해야지, ‘자기 생활’에 대고 비교하면 안 된다.
14. <새벽예배>도 ‘습관 들이기’에 달렸고, ‘생각’하기에 달렸다.
15. <잘못된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
16. <지도자, 교역자>에 따라 교인들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게을러지기도 한다. 고로 지도자들, 교역자들이 습관을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 오직 주의 뜻대로 해라.
17. 성경에서 말하기를,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자가 된다.” 했다. 이같이 몸이 부지런한 자가 ‘신앙의 재벌’도 되고, ‘물질의 재벌’도 된다. 그러나 <큰 자>는 ‘하늘’에서 난다.
18. 잘못된 습관을 다 없애 버려라. <습관>이 나중에는 ‘돌담장’이 되고, ‘성’이 된다.
19.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하게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어렸을 때 부지런한 자는 커서도 부지런하다.

20. <하나님과 일체 된 자>는 부지런하다. 왜? 하나님은 신적으로 움직이시니, 하나님과 일체 된 자는 숨 가쁘게 뛰어 다니고 날아다닌다.
21. <무조건 빨리하고 일찍 하는 자>는 ‘부지런한 자’다.
22. <할 일을 놓고 미루는 자>는 ‘게으른 자’다.
23. 성경의 잠언대로 말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자가 게으른 자다.
24. <게으른 자>는 하면 되는데 안 한다. 게을러서 안 하고, 혹은 “산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서 물려 갈까 봐 안 간다. 들에 가면 뱀이 있어 물까 봐 못 간다. 농사는 잡초 때문에 겁이 나서 안 한다.” 하며 각종 이유를 대고 안 한다.
25. <희망이 있는 자>는 얻기 위해 부지런해진다.
26.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부지런해진다.
27. <하나님의 뜻을 두고 안 하는 자>는 ‘게으른 자’다.
28.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하는 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행한다. 그리고 행해야 만족하고, 스릴을 느끼기 때문에 부지런히 행한다.
29. <시대 신부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뜻을 펴고, 사랑의 역사를 펴기 때문이다.
30. <사랑>은 ‘불’이다. <불>이 붙으면 빠르게 번져 나간다. 그래서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감당할 수 있다. 이같이 <사랑>도 그러하다. <사랑에 불이 붙은 자>는 무섭게 뛰고 달린다. 모든 것도 ‘불’이 붙으면 빨라진다.
31. <차의 엔진>도 뜨겁게 열을 낼수록 빨라지듯이, <사랑의 열기>가 뜨거울수록 빠르게 뛰고 달린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는 신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행하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늘 말씀하시기를, “초를 두고 다튀라.” 했다.
32. <환경>에 따라 게을러지기도 하고, 부지런해지기도 한다.
33. <시장>에도 일찍 가야 ‘좋은 물건’이 많지, 늦게 가면 없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사전 병아리같이 부지런해야 된다. 이러한 법칙과 이치를 알고, 하늘의 역사도 깨달아라. <법칙과 이치>는 동일하다.
34. 솔로몬은 부지런한 자였다. 고로 부지런한 만큼 하나님의 잠언을 받았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잠언을 받은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겪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잠언을 못 받는다.
35.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부지런함에 해당되는 잠언’을 주셨다. 겪은 대로, 행위대로 받는다.
36. 게으르면 ‘게으름에 해당되는 잠언’을 받는다.
37. 자기가 행한 대로 느끼고, 받고, 이야기한다.
38. <게으른 자>는 ‘늦여름’에 씨 뿌리고, ‘겨울철’에 추수한다.
39. <부지런한 자>는 ‘초여름’에 씨 뿌리고, ‘가을’에 황금벌판을 이뤄 놓고 추수한다.
40. <게으른 자>는 마음 밭에 ‘잡초’만 무성하다.

41. <부지런한 자>는 ‘문전옥답’을 차지하고, 황금물결이 치게 한다.

42. 섭리사의 <문전옥답>은 ‘하나님의 궁, 월명동의 주변 지역’이다. 하나님의 궁 주변에 우리가 거할 곳을 차지했다. <부지런한 자>가 차지한 것이다. <주>는 부지런하니, ‘주의 손’에 잡혔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주셨다.

43. 하나님은 ‘부지런한 하나님’이시다.

44. 장돌뱅이같이 돌아다니고 쫓아다녀야 볼 것도 보고, 얻을 것도 얻고, 먹고 누린다.

45. 앉아서 천 리를 보려고 하지 말고, 가서 보아라. 너희 생각과 다르다.

46. 부지런히 살아야 좋은 것을 얻는다.

47. <게으른 자>는 ‘좋지 못한 것’만 청소해 간다. ◎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짚서 부지런히 깨닫고 부지런히 행하라 했습니다. 늦기 전에, 인생이 늙어 버리기 전에 행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일을 꼭 하게, 생각나게, 기억나게, 성령으로 감동시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큰 능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자기 구원>, <자기 휴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시는 생명 구원>이 급선무다. 이를 늦기 전에, 인생 늙기 전에 행하여라. - 이 말씀이 금주에 가장 힘 있게 행해야 될 일이었다.

2. 하나님께서 금주에 “늦기 전에 행하여라. 늙기 전에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기에 매일 그 말씀대로 행했어야 했다. 이를 행한 자는 ‘금주 말씀에 순종한 자, 행하여 얻은 자’다. 그러므로 이제 ‘쓰일 수 있는 자’가 됐다.

3.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게 막고 반대한다. 고로 “늦기 전에 행하여라. 늙기 전에 행하여라.” 하는 말씀을 행하지 못한 자도 있으니, 이를 깨닫고 기도하여 사탄을 물리쳐라. <사탄>을 물리쳐야 다시 행할 수 있다.

4.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탄도 인사탄도 막고 방해한다. 금주에도 각 분야마다 사탄이 막은 것이 있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못 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뇌에 꽂혀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탄은 ‘상대자’를 막는다. 항상 존재의 세계는 ‘상대’가 있어야 진행된다. 혼자서는 못 한다. 고로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 말씀을 안 들은 자’를 막고 못 하게 방해한다. 고로 <사탄>을 이기려면, 기도하여라.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모든 사탄을 물리치고, 천사들이 와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5. 지금 할 일은 ‘식구들끼리만 잔치하지 말고, 시대 생명들이 모여들게 해서 그들과 잔치하는 것’이다. 식구들끼리만 잔치하면, 기쁨이 없다. <시대 생명들>을 이끌어 와서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이 잔치하시는 때에 같이 동참하게 해야 한다.

6. 잔치를 하려고 신랑이 왔는데, 식구들만 있고 잔치 마당이 비어 있으면 민망한 것이다. 고로 <전도의 일>에 눈을 떠서 해야 된다.

7.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외치라고 했다. 그 말씀대로 외쳐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 살아나게 하고, 부활시켜야 된다. <부활>은 그냥 때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쳐야 부활된다. 부활되면, 그때부터 해가 지는 것도 알고, 자기 해가 다 된 것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즉시 일어나게 된다.

8. <면류관>은 ‘자기 생명 구원의 면류관’도 있지만, ‘상대 생명 구원의 면류관’도 있다. 이는 생명을 구원한 자마다 계속 준다.

9. <생명 구원>이다. 선생이 아무리 ‘성경의 예정된 사명자’라도 전도를 안 했으면 ‘혼자’다. 전도했기에 시대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펴 가고 있다. 아직 많은 생명들이 있으니, 이 말씀을 전해서 생명들을 이끌어 와야 된다. <지금, 말씀을 줄 때>가 ‘적기(適期)’다. 말씀을 들었으면, 일을 해야 된다.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된다.

10. <사탄>은 우리가 생명들을 뺏어 갈 때 제일 무서워한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할 생명을 뺏어 가는 것’밖에 없다.

11. <우리의 목적>은 ‘자기 구원, 생명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된 자들’이 데려와야 된다. <주인>이 가면, 주게 되어 있다. <시대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성약 시대의 주인들’이다.

12.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백성들을 안 내어 주니, “왜 내 백성을 안 주느냐! 내 백성이다! 안 내놓으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했다. 결국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으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았다. 이와 같이 무섭게 해야 된다. 그만한 능력이 시대 사람들에게 다 있다. 왜? <천 년 역사의 시대 주인들>이기 때문이다.

13. <시대 주인들>이 가면, ‘이 시대에 해당되는 생명들’을 다 내놓는다.

14.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사탄이든, 인사탄이든 막고 방해하나, <주인>이 나타나면 ‘생명들’을 내어 줄 수밖에 없다. <주인 된 자들>이 권위 있게 근거를 대며 하나님과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사탄도, 인사탄도 막을 수 없다.

15. 사탄을 이기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사탄이 다 안다.

16. <기도>가 ‘말씀의 검, 사랑의 검, 실천의 검’이다.

17.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18. <사명을 받은 자>가 그들과 싸우니, 그들은 ‘사명 받은 자’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명을 준 자’와 일체 되어 행하시니, 그는 신이 되어 움직인다. 그런데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셔도 안 된다.

19. <말씀을 외치는 것>이 ‘실천’이다. <실천>하면,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시대 말씀의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된다. <시대 말씀의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어도 안 터뜨리면 지는 것이다. 터뜨려야 이긴다.

20. <사탄>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사탄을 분별해야 된다.

21.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와 싸워 이겨야 된다.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가 굴복하면, ‘사탄’도 굴복한 것이다.

22.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라. 그때마다 해당되는 검으로 싸워라. <말씀의 능력, 말씀의 세력>이다.

23.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 말씀으로 꼬투리를 잡힌다. <말씀>으로 결정된다.

24. 오늘은 그날이다. 곧, ‘네가 원하고 바라던 일을 행하는 날’이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날’이다. 이를 알고 정녕코 행하여라. ◎ 말씀 받은 것을 다 전해 줬습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오늘 결국 말씀을 다 했습니다. “전도를 하라. 생명의 부활을 시키고 살려라. 너희는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누구냐? 너희는 시대의 에스겔이 아니냐. 내가 준 말씀 가지고 가서 외쳐라. 그리하면 그들이 생명권으로 돌아오리라.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왜 죽은 뼈들이 생겼을까?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전쟁해서 죽어 버렸다. 이들은 모든 생명

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라.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서 ‘살아나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는 죽어 있다. 뭐든 모르면 죽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치 않으면 죽어 있는 것이다. 살아나라. 어떻게 살아나느냐? 여기 와서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하고 가서 외쳐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자기 개성대로 돈도 벌고, 경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시대의 머리가 되어서 행하는 대로 축복을 받고 살 것이다. 외쳐라. 그리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모두 금주로부터 시작해서 남은 금년도의 시간들을 생명을 구하는 데 쓰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힘을 받고 열심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없는 가운데 뛰고, 배고픈 가운데 뛰고, 허리끈을 졸라매고, 그리고 문전걸식을 하면서 사는 자들도 있사오나, 그러나 이들은 잘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 너희들이 뛰는데 나도 뛰고 달리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캠퍼스를 도우리라. 직장부도 돕고, 중고등부도 도우며, 시대의 모든 뛰는 사람들을 도울 테니, 뛰어라. 열심히 뛰고 달리면 해결되리라. 운동할 때도 땀이 나도록 뛰는 자들은 쉽다고 했습니다. 나는 검이 된다고 했습니다. 안 뛰는 자는 몸이 무거워서 안 뛰어집니다. 계속 뛰는 것만이 그들이 모두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불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의 불은 받은 자요, 감동을 받은 자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요. 이 두 가지를 갖추면서 나가 뛰고 시대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생명을 구원하는 자들과, 시대의 일을 하는 자들, 전도하듯이 각 분야의 일을 하는 자들, 각종으로 섭리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교회 행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뛰어라. 파악도 못 하고 뛰면 안 된다. 지금 너는 왜 안 뛰느냐? 국장급들이 뛰지 않고 뭐 하느냐? 지금 생명을 구원하고 뛰고 달려야지. 만군의 하나님께서 뛰고 달리는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두 이들이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땀 때다. 선생 옆에서 배우고 땀다고 하지만,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생명이 저기 지나가니, 빨리 가서 구원하고, 빨리 가서 행하여라. 철저한 행동, 철저한 계획, 철저한 모든 준비를 단단히 하고 뛰어라. 뛰면서도 가만히 무조건 뛰기만 한다고 되지를 않는다. 방향 없이 뛰지 말아라. 방향을 잡아라. 네 주관권에 오는 사람 가지 고만 뛰지 말고, 쫓아가라. 가 보아라. 가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해 보아라. 상황이 눈에 들어온다. 모든 교역자들아! 선생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속하는데 뭐 하느냐? 부지런히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26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을 ‘제일’로 보고 하여라. 항상 <사랑>이 ‘근본’이다.
2. <사랑>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하여라.
3. 하나님은 <사랑의 법>을 ‘제일’로 놓고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해 주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행위대로 대해 주신다.
4.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낸 메시아>를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대했다.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낸 자’를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막고, 반대함으로 인해 ‘죄’를 지은 바가 됐다. 고로 그 행위대로 대가를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모르고 반대하고, 혹은 주를 사랑해도 ‘주가 쓰는 자, 주를 증거하는 자’를 미워하고 반대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자다.
5. 하나님은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를 보내시고, ‘주를 증거하는 자’도 보내시고, ‘시대 하와’도 보내셨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령을 사랑해도, 주를 사랑해도 ‘주가 뜻을 위해 보낸 증거자, 시대 하와’를 미워하고 욕하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이같이 한 자들은 자기가 몰랐을지라도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죄는 그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해야 없어진다.
6.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낸 메시아’를 막고 미워하고, 혹은 주를 사랑해도 ‘주가 뜻을 위해 보낸 증거자’를 막고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주관’으로 인해서다. 혹은,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7.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은 그들이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준다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근

본을 몰랐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섭리사>를 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하나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확인하면서 회개를 받고, 잘못을 바로잡아 주어라. 설교만 해서는 모른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어라. 100% 해야 된다.”하셨다.

8. <섭리사>에서 서로 문제가 생기면, 잘못을 해 놓고 “주께 회개했으니 됐다.” 하고 만다.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잘못했으면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다.

9. 형제들에게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는 말을 안 하면, 상처 받은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다. 고로 천국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10. <천국>은 ‘죄’가 있으면 통과가 안 된다. 고로 <죄 문제>에 대해서 영성하게 용서받으면 큰일 난다.

11. 본인은 주께 회개했으니 됐다고 하지만, 그 죄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 그대로 있다. <회개>는 ‘주’께도 하고, ‘자기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자’에게도 해야 된다.

12. 주가 사랑해서 용서했는데, 회개를 안 하면 안 된다.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가 가서 대신 회개해야 된다. <주>가 그 죄를 짊어지기 때문이다.

13.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의 법’이다. 고로 그 법대로 해야 된다.

14. <죄>가 있으면, ‘죄의 세계’로 간다.

15. 자기는 회개했다고 해도 ‘자기로 인해 상처를 받은 자’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주가 ‘용서의 도장’을 완전히 찍을 수가 없다.

16. 사람들을 모함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사탄이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사탄 주관권’으로 끌고 간다.

17. 가령 도둑질을 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을 갖다 주면서 내가 도둑질을 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해야 끝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잘못을 했으면, 자기 혼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18.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고가 잘못된 자들>이 있다.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형제를 모함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사고’에서 일어난다. 나 여호와가 처리해야 될 일이니, 네가 내 욕이 되어 처리해야 된다. 놔두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계속한다. 고로 사고 난다.”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릇된 자들의 말에 속지도 말고, 그 말을 믿지도 말아라. 내가 그들을 대면할 때 말씀하리라.” 하셨다.

19. <죄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끌고 간다.

20. <죄>에 대해 완벽히 알고, 본질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21. <주>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뒤에서는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은 주를 사랑한다고 하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 대한 것과 같다. <진실한 사랑>이었으면,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어서 그런 짓을 못 한다.

22. <하나님과 주가 보내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욕하고, “누가 돈을 떼먹었다.” 하며 잘못된 말을 하고 다니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상처를 준 자에게 빨리 가서 자기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

23.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심판이 된다.

24. <사랑의 세계>는 '정리의 세계'다.

25. <사랑의 세계>는 100% 완벽해야 사랑이 오갈 수 있다.

26.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가 보내서 일을 하는 자들을 꼬투리 잡고,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는 자들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 더러운 물 때문에 깨끗한 물도 오염된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사고를 가진 자들이 있으니 처리하여라. 그냥 놔두면 이들이 구원에 합당치 않다." 하셨다.

27.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끼리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것이 있으면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 완전히 소각시켜야 된다.

28. 하나님과 주 앞에 진실로 회개했으면, 자기로 인해 해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자기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

29. <섭리사를 나간 자들의 말을 듣고 내통하는 자들>은 '구원'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들과 똑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

30. <양>은 '염소'한테 속는다. 그러나 <주>는 속지 않는다. <주>를 속이면, 그때는 할 수 없이 '원자폭탄'을 퍼붓는다. 금주에 '사랑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깨끗이 처리해야 된다.

31. 사랑 안에는 '미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죄'가 없다. 고로 미워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깨끗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지 않고 사랑을 하면 안 된다.

32.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해 놓고 주를 사랑하고 주께 충성하면 안 된다.

33.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지어 놓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다.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그들이 '주'를 믿고 따랐어야 했다.

34. 제일 무서운 것이 '죄'다.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35. 영계에서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닌다.

36. <차>도 고장이 났는데 안 고치면, 결국 나중에 사고가 난다. 이같이 <죄>도 그러하다.

37. <죄의 대가>는 작으면 작은 대로 받고, 크면 큰 대로 다 받는다.

38.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뜻을 위해 쓰는 자들'을 막고 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막은 것이고, 하나님을 욕한 것이다.

39.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막으면 그 죄가 크다. 느고 왕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시아'가 모르고 막았다. 결국 요시아는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해서 죽게 됐다.

40. 하나님은 '사명자 편'이시다.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행하는 자를 막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행하는 자'를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된다. 고로 사명자는 '사명의 총, 말씀의 총'을 겨냥 버린다.

41. 하나님께 고소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대로 공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구촌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다.

42.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실한 사랑, 진짜 사랑’을 해라. <사랑>이 ‘최고’니라.
43. 왜 주가 사명을 준 자들을 미워하느냐. <사랑>이 최고인데, 왜 ‘진실한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 그들을 미워하였느냐.
44.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상징체’다. 그런데 <하나님 본체>가 그를 쓰고 행하실 때는 그 육신도 ‘본체’다.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께서 쓰는 자의 육>을 ‘성령의 상징체’로만 보면 안 된다. 성령께서 ‘그 육으로 쓰는 자’에게 임해서 역사하시면, 그 육신이 ‘본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45.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은 본 자다.” 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쓰는 자의 육신을 통해 비춰 보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결국 그들은 멸망까지 받게 됐다.
46. <사명자>를 ‘상징체’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실제 행하시는 시대>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통해 말씀하신다. ◎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받은 것을 전해 줬으니, 이것을 깨닫고 행할지니라. “죄가 그렇게 무서우니라. 죄가 호리라도 있으면, 형제에게 회개로 갚지 못하면 사망에서 못 나오고 죽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호리라도 죄를 범한 것 있으면 회개를 그 형제에게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호리의 죄 때문에 사망권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 때 형제급 사랑에서도 그렇게 논했는데, 지금은 신부급 사랑으로 더 차원 높게 논하고 있으니, 미워한 것까지도 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육신을 쓰고 선포했으니 모두 행하여라.” 했습니다. “왜 형제를 헐뜯고 미워하고 고소한다고 그러느냐? 이것은 사망의 것이다. 영원한 사망권에 살게 된다.”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사망에 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런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니, 다 청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은 ‘제1’이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다.
2.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도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많다. <성경의 핵 역사>를 보면, 아담과 하와 때도 ‘사랑’이 깨진 것이고, 가인과 아벨 때도 ‘사랑’하지 않아서 아벨을 살인한 것이고, 노아 때도 ‘사랑’을 제대로 못 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한 땅에 보내셨다. 이삭의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야곱’을 택해서 뜻을 이루셨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다. 결국 요셉을 중심해서 축복의 기둥이 세워졌고, 요셉은 이스라엘의 총리대신이 되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에 대한 누명을 썼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랑을 상실하지 않았다.
3.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막고, 반대하고, 시기, 질투한다. 왜? 사탄은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사랑이 상실되었다.
4.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것’이다. 사탄은 그 죄를 지은 것이다.
5. 사람들을 보면, <이성의 범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고 복직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막은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게 했기 때문이다.
6.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막은 자>는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꼭 알고 행할 것이다.
7. <사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서 쫓겨남을 받았다. 고로 사랑이 상실돼서 사랑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못 먹으니 ‘배가 쓰린 고통, 배고픈 고통’이 연속되는 것과 같다.

8. <사탄>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사탄>끼리는 사랑을 줄 수가 없다. <사탄>에게는 ‘사랑’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무’를 수천 개, 수만 개를 먹어도 ‘무’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9. <사탄>은 어디를 가도 사랑을 못 받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갔다.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를 펴시는 곳>에 가야 찌꺼기라도 얻어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간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안 죽는다.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관심을 갖게 했다. 아담과 하와가 이성 관계를 해서 타락하기에 앞서, 먼저 사탄의 말을 듣고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하는 것’과 같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권이 되기 때문에 못 따 먹게 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하는 말을 하고, 극적으로 나쁜 사상을 넣었다.
10.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으면, ‘사탄의 사상’이 들어간다.
11. <이 시대>도 ‘섭리사를 악평하는 자, 불신하는 자들’은 사탄과 같은 전략을 그대로 쓴다. <사탄의 주관>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치 큰 땅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사탄과 함께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고로 거기에 있으면, 사탄과 함께 깔려 죽는다.
12. <사탄 역사>에 동참하면 안 된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너희의 영이 죽고, 육신도 축복을 못 받는다.
13.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늘 주와 의논하고 해야 된다.
14. <의논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주’가 되어 하려고 하는 자다. 그러면 바로 사탄이 침범한다. 왜? <주의 길>에서 떠나고, <주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허공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고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
15.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하여라.
16. <주>는 사탄, 마귀를 없애려고 왔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17.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탄, 마귀들을 멸했다. <사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고 반대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뤘다. 하나님은 정녕코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사랑의 존재자’가 되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이뤘다.
18.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런 자는 어디를 가도 사랑받지 못한다. 그리고 <사랑>을 상실한 자, 타락된 자들도 사랑을 못 받는다.
19. <사랑>이 변하면 사랑을 줘도, 반대한다. 변하지 않으면 사랑을 늘 한다.<사탄>도 사랑이 변해서 비원리를 주장하면서 반대했다. 하나님은 성서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똑같이 하는구나. 사탄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한다.” 하셨다. <동방의 독수리>가 나타나면 그 힘센 발로, 또 날갯죽지로 때리고, 힘센 부리로 찢고, 다 갈기 갈기 찢으리라 했다.
20. <사랑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21. <사랑의 불신자, 배신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자>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고로 쫓겨남을 받는다. <섭리사>에서도 그러했다. 고로 ‘근본 된 토지를 가는 자’가 되었고, ‘옛날에 하던 짓을 또 하는 기성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다.
22.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좇으라.

23. <참사랑>만이 '참사랑'을 이룬다.

24. <사랑>은 '제1'이다. <사랑>이 '모든 일의 답'이니라. 고로 <사랑함>으로 해결해라.

25.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랑하지 말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사랑의 완성'이 되고, '온전한 사랑'이 되느니라.

26.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여라. 이 두 가지를 해야 '사랑의 완성이 된 자'다.

27.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는 데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주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에 실패한다.

28. <임금>만 사랑하지 말고, '임금이 사랑하는 자'도 사랑해야 성공한다. 이것이 '사랑의 성공 비법'이다. 사탄은 이것을 못 해서 실패했다.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하나님이 사랑하려는 자, 인간'을 창조하는 계획을 막아서 실패했다.

29.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라. <사탄의 논리>를 알고, <사탄의 주장>을 알아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주가 최고로 쓰는 자'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자들은 그 앞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영원히 있다. 고로 '사망'으로 간다.

30. 몰라서 한 것도 '죄'다. 신호등을 지나가는데 자기가 빨간불을 못 보고 지나가서 사고가 나면, 못 봤어도 사고가 났기에 사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이 몰라서 한 것도 '죄'라는 것이다.

31.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힐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를 힐문했어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와 같이 왔다.

32.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주>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는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을 이룬 완전한 자다." 하셨다.

33.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로 받는다. 하나는 '직접 받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보낸 자를 통해 받는 사랑'이 있다. <직접 받는 사랑>을 가지고는 '무형적인 뜻'만 이룬다. <보낸 자를 통해 받는 사랑>으로 '유형적인 뜻'을 이룬다. 신약 때도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유형적인 뜻이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땅에 보낸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갔다.

34. <자기>를 사랑할 때 사랑이 통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때 사랑이 통한다.

35. 하나님과 주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쓰고 사랑을 받기도 하시고 사랑을 주기도 하신다.

36. <완전한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이다.

37. <하나님과 주>는 사랑을 직접 주고받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근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주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뜻'을 펴 나가신다.

38. <사랑>이 완전하고 온전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주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온전하게 이뤄지고 그 기반 위에 역사를 펴 나간다.

39. <사랑>에는 항상 '사탄'이 끼어서 막고 방해한다. <사탄>은 '사랑'이 파괴되어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운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고로 사탄은 <사랑받는 자>를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사랑받는 자’에게 붙어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40. <사탄>을 물리치고 사랑하기다. <온전한 사랑>을 안 하면, 사탄이 침범한다.

41.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사랑해라. 그래야 사탄이 자기에게 끼어들지 않는다. 자기에게 온 사탄은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 <사탄>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탄이 끌고 간다.

42. <온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43. <주>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주가 사랑하는 자’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사탄이 침범하지 않는다.

44. <하나님과 주 안의 진실한 사랑>은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까지다.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연속된다.

45. <사랑>이 온전할수록 그 사랑의 기반에 따라 ‘사랑의 건물, 사랑의 빌딩’을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건축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축복도 받는다.

46. <사랑의 기반>이 완전할수록 하나님은 그 위에 사랑의 건축을 무한히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 한도 끝도 없이 해 나가신다. 그래서 영계에서 <휴거된 자들의 건물>을 보면, ‘문’만 지나는데도 차를 타고 한나절을 간다. 그렇게도 크다.

47. 꿈에 보니, 언덕 끝부분의 땅 일부에 금이 가서 땅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곳을 중심으로 서 있다가는 그 속에 깔릴 것 같았다. 고로 거기서 속히 뛰어나왔다. 두 번이나 그리 하였노라. 사랑이 온전치 못한 자를 중심으로 그 무너짐에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48. 주 앞에 거짓말을 하면, 영원한 구원을 못 받고 성 밖으로 쫓겨난다. 주께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돼서 천사가 그 영을 성 밖으로 끄집어낸다. 주 앞에 거짓말을 해도 안 되고, 모사(謀事)를 써도 안 된다. 주 앞에 거짓말을 하고 모사를 쓰면 ‘금이 가서 무너져 내리는 언덕’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사랑의 언덕에 금이 가서 사태가 나면, 묻혀서 끝난다. <육신>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나듯이, <영혼>도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들은 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병도 낫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항상 저마다 깨끗이 처리하고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가 화나서 한 말은 잘 모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화났을 때가 지나서 화를 내지 않는 세대가 오면, 자기가 화났을 때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뇌의 장치이고, 뇌의 기능이고, 뇌의 현실이고, 뇌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한 일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말씀하실 때는 깨닫고 온전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러함을 받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모두 사망권에 처하게 되니, 말씀에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완벽하게 알고 판단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들었을 때는 형제도 잡아 넘기고, 시험 들었을 때는 아버지도 잡아 넘기고, 시험 들었을 때는 주도 잡아 넘기고, 시험에 들었을 때는 악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에서 돌아왔을 때는 옛날에 한 짓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겠다.” 했습니다. 모두가 호리라도 남기지 않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믿음>도 중하고, <소망>도 중하지만, <사랑>이 제일 중하다.

2. <사랑>을 통해 ‘믿음’도, ‘소망’도 이뤄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다.” 하셨다.

3.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역사를 하실 때 항상 ‘사랑’을 제일로 두고 행하셨다.
4. <아담과 하와 때>도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로 두고 행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끼리 사랑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
5.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항상 ‘사랑’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인간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6.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어기고 이성 타락을 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이 깨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사 ‘사랑의 역사’가 계속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에덴동산의 사랑의 역사’가 깨지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사랑이 깨지니,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역시 사랑을 못 했다.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아벨을 죽였다. 사랑이 깨지니, ‘사랑이 없는 족속의 역사’가 계속됐다. 그리고 후에 노아가 오기까지 1600년이 흘러갔다. 하나님은 그때서야 다시금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말’을 하지 않으신다.
7.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16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은 노아가 하나님을 지극히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좋아해야 되냐고 하니,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듯이 해야 된다. 그 단계의 선(線)을 넘어가야 된다.
8.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하나님은 ‘신랑 입장’이시고, 우리는 ‘신부 입장’이다. 고로 하나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9. 하나님과 주를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거리감을 두면, 사탄이 자기 세상으로 끌고 간다. 그러면 ‘사탄의 것’이 된다. 다시금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를 사랑해야 ‘하나님과 주의 신부’가 된다.
10.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생명이니 지켜라.” 하셨다. 이 시대 보낸 자도 말씀한다. 내 말은 생명이니 꼭 지켜라! 이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11.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12. <하체 사랑>은 ‘저 밑의 사랑’에 불과하다.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은 ‘맨 위에 있는 사랑’이다.
13. <뇌 사랑,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을 하면, 변함이 없다. 아예 뇌에 그 사랑이 꽂 박혔기 때문이다.
14. 진실로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권’에서 벗어난 자다.
15.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권’에서 벗어난 자다. 일점일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적이 없어야 된다.
16.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사탄의 밥’이 된다. <사탄>이 주관한다.
17. 가령 한국말 중에 ‘하’자를 쓴다 하자. ‘ㅎ’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ㅣ’를 쓰고 점을 찍어야 ‘ㅏ’가 된다. 점을 안 찍으면, ‘히’자로 끝나게 된다. 온전히 점을 찍어야 완전한 ‘하’자가 되듯이, 이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18. <사랑 점수>가 충분히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 사랑해.”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고 만족해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보람을 느끼신다.

19. 하나님과 주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20.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라.

21.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

22. <육적인 사랑, 살덩이 사랑>을 통해 '정신'에도 불이 붙긴 하지만, 그 불은 얼마 안 간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정신적 사랑의 불>이 붙어서 타 내려가면, '육적인 세계'를 좌지우지해 버린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이다.

23. <하나님의 사랑, 메시아의 사랑>은 '위'에 있지, '밑'에 있지 않다. 그 사랑으로 온 인류를 위해 말씀해 주신다.

24.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으로 사랑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25.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나무'다. <뇌, 머리>는 '금단의 열매'다. 고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뇌가 흥분되고 기뻐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26.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27.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마치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가졌으면 더 이상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살면 더 이상 없다. 그 사랑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생활>이 '사랑 관계'가 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사랑'을 펼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28. <주>를 보통으로 보면 안 된다. <주>는 '상징적인 하나님'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면, '직접적인 하나님'이 된다. 임금 옆에 있는 신하들은 평소에는 '임금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러다가 임금이 신하와 일체 돼서 같이 일을 하면, 그때는 신하가 곧 '임금'과 같다.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온 자라도 '10년, 20년 전에 와서 못 깨달은 자'보다 훨씬 앞서간다. 고로 그런 자에게는 바로 사명을 준다. 이는 <사랑의 급수>를 보고 하는 것이다.

29. 하나님도 주도 '말씀'으로 사랑하는데,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식물인간>과 같다.

30.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31.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상상을 못 한다. 그 사랑을 상징적으로 갖다 놓았어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곧, 성령폭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작품>이다.

3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다 받으면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시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 하는 사랑을 펴부어 주신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마음이 좁고, 생각이 좁으면 그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다. 어린아이는 아무리 사랑해 줘도 그 사랑에 반응이 없다. 성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러하다. <사랑>에 있어 성장하고, <신앙>에 있어 성장하고, <믿음>에 있어 성장하고, <지혜와 지식>에 있어 성장하고, <뇌와 생각>에 있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을 해 주셔도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을 안 하면, 사랑을 해 줘도 죽는다. 고로 빨리 성장해야 된다.

33. <사랑의 성장>, <믿음의 성장>, <행실의 성장>, <생각의 성장>이다.

34.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보다 10조 배도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고로 그 사랑을 다 줘야 만족하시는데, 우리가 성장을 안 하면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없다.

35.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할 때’도 나타나고, ‘운동할 때’도 나타나고, ‘나무 심을 때’도 나타나고, ‘일할 때’도 나타나고, ‘이야기할 때’도 나타난다. 이같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못 본다.

36.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없이 하나님과 직접 통하려면 안 된다. 일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통해지지 않는다. 왜? <송신탑>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송신탑’이 없으면 안 통한다.

37. 선생이 10대 때 꿈에 보이기를, 선생이 월명동에 서 있었는데 나를 통해 기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선생이 ‘송신탑’이 돼서 서 있었다. 후에는 그 꿈이 ‘하늘과 땅의 중보자’를 나타내 보이신 것임을 깨달았다.

38. <하나님의 사랑>도, <능력>도, <권능>도 ‘성장’하면 받아들인다.

39.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절대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함으로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된다.

40.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뇌 사랑,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41. <하나님 사랑의 근본 세계>가 ‘뇌, 정신’에서 이뤄진다. <뇌, 정신>에 불이 붙으면, 생각하는 대로 ‘수만 가지’로 흥분된다. 그런데 <이성으로 관계하는 사랑>은 그것 ‘하나’만 흥분된다. 고로 <하나님의 사랑>은 ‘뇌’로 받아야 감당하지, ‘하체’로 받으면 실 가닥에 불과하니 감당하지를 못한다.

42.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만 하니, 하나님은 ‘양심 심판’을 하셨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시며,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을 하셨다. 방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에게도 방주를 만들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리 하지 않으니 심판을 받고 모두 사망권에 거하게 됐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는 길’을 주셨지만, <사랑을 제일로 두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사망에 거하게 된 것이다.

43.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도 창조하시고, 만물도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셨다. 고로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양심에 채찍을 가하신다.

44.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거침없이 펴 나갔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 함>이 벌거벗은 채 누워 있는 노아를 보고 부끄럽다고 하며 옷을 갖다 덮어 줬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 사랑했기에 부끄러워서 벗고 숨은 것이지만, <노아>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떳떳했으나, 함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옷을 덮어 준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직접 말씀하시며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노아 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후손들이 탕감 받고 복직하는 역사가 1600년 만에 일어나서, 구약 나뭇대로 사랑의 역사를 펴고 있었던 때다. 아담 때 못 한 것을 하나님께 행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노아의 육신을 쓰고 사랑하며 그 역사를 땅에서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함이 몰랐던 것이다. 마치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끄럽다고 하면서 옷을 덮어 주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일에 손을 댄 자>는 시대 저주를 받고 사망권에 처한 자가 된다. 이는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다.

45.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이뤄지는데 그것을 막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 분의 일, 십만 분의 일도 모르는 자들이다.

46. 하나님은 <말씀>도 ‘육신’을 쓰고 하시고, <사랑>도 ‘육신’을 쓰고 하신다.

4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완전한 자다. 사랑도 완전한 자다.” 하셨다.

48. <함>은 ‘믿음’을 절대 지켰어야 됐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 고로 400년 후에 아브람이 와서 믿음의 조

건을 세웠다. 고로 하나님은 “너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하고 말씀하셨다. <함이 세우지 못한 믿음의 조건>을 아브람이 세웠기 때문이다. 고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로 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사랑이 형통하는 역사를 펴셨다.

49. <다윗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며 그 터전 위에 ‘통일 왕국 역사’를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하여금 ‘시대 역사’를 펴게 하셨다.

50. <솔로몬 때>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며 시대의 뜻을 펴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을 짓게 하셨다. <성전>이 ‘하나님의 궁’이다.

51. 신약시대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셨다. 고로 <기다리던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구원 역사를 펴셨다.

52.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받게 하시어 사망에서 나오게 하시고, 육도 형통하고 영도 영생케 하셨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 안 믿는 자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고 사망에 묻히게 됐다.

53.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신약역사가 끝나고 때가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랑의 목적, 휴거 역사>를 하셨다. 고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휴거시켜 그 영들이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54. 하나님은 <태초, 창세 때>도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마지막 때>도 ‘사랑’으로 목적을 이루셨다.

55. <절대 하나님 사랑>, <절대 성령님 사랑>, <절대 주 사랑>, <절대 형제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

56.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랑에서 벗어나고 휴거의 육도 영도 안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된다.

57. <사랑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몸’과 같다.

58. <자기 소망, 자기 믿음>을 이루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여라. 형제를 사랑하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봤는데, 역사를 훑어보고 또한 말씀을 들어 보니, “내가 사랑의 역사를 늘 펴 온 것을 보아라. 어떻게 펴 왔나? 단계별로 사랑의 세계를 펴 왔다. 구약은 종급 사랑, 신약은 자녀권의 사랑, 성약시대는 신부들이 ‘대상’의 사랑을 해 왔다. 너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가치를 알고 뜻을 깨닫고 중요한 것을 깨달아라.” 했습니다. 시대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영광을 돌리며 가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모두 믿음이 없으면 이해를 못 하고, 믿음이 없으면 모두 사망권에 처한 생각들이오니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섭리사의 모든 자들이 형제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모두 몰라서 한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미 십자가를 졌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화목케 하라.” 했습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를 명하노니 그리함을 받고 온전할지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사랑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인간>이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그 행위대로 ‘하나님 사랑’을 100%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100% 사랑을 원하지, 꺼림 있는 80% 사랑, 90% 사랑은 원하지 않으신다. 물론 <성장기 때>는 성장하다 보니 사랑이 부족할 수 있지만, <성장해서 완성했을 때>는 ‘100% 사랑’을 할 수 있다.

2. <사랑에 대해 성장이 안 된 자>는 ‘100% 사랑’을 못 한다.

3. 휴거 때 성령님도 성자도 말씀하시기를, “<100% 사랑>이 안 되면, 휴거가 안 된다. 미결수 영들은 휴거 200선, 300선에 불과하다.” 하셨다. <휴거 200선, 300선>은 사랑의 상대가 됐지만, 겨우 약혼한 정도다. <신부의 옷>을 입고 100% 단장해야 된다.

4.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100% 만족하기 위해 창조하셨다. 고로 <미완성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5. <100%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100% 못 이룬다. 하나님은 50% 사랑, 70% 사랑도 받으시지만, 그것으로는 ‘완성의 사랑’은 못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고, 하나님을 100% 사랑해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최고로 사랑해라.” 하셨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사랑의 완성을 한 자’다.

6. <사랑의 완성>이 ‘온전한 사랑’이다.

7.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100% 해 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술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100% 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일>도, <생명을 사랑해 주며 관리해 주는 일>도 100% 하면, 역시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와 그냥 “저는 100%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자는 그 사랑의 차이가 너무도 크다.

8. 연구하고 노력해서 터득한 노련한 사랑,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랑, 덕을 베푸는 사랑, 차원 높은 사랑, 성장된 사랑, 큰 사랑 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게 그 사랑을 다 받으신다.

9.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로 인한 사랑의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열 가지 등 다양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100% 행하면, 그로 인한 ‘사랑의 대가’를 받고, 또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빛’이 나게 된다. 이런 자는 ‘여러 자기 옷이 있는 자’요, ‘여러 가지 면류관을 가진 자’요, ‘여러 가지로 갖추고 천국에 가는 자’다. <황금성 천국> 중에서도 ‘황금의 천국, 다이아몬드 천국, 에메랄드 천국’ 등 여러 가지로 갖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양하게 사랑해라. <주>는 ‘다양한 사랑’을 보이고 행한다. 하나님의 구상을 그림으로 그려 내기도 하고, 건물로 지어 보이기도 하고, 예술로 꾸며 내기도 한다. 또한 춤, 시, 글, 잠언, 지식 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발사한다.

10.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다윗>은 ‘노래’로 영광을 돌렸다. <이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영광을 돌린다.

11. 여러 가지로 해야 된다. 봄이 오면 만물들이 소생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수백, 수천, 수만 가지로 소생한다.

12.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은 “이것은 이렇게 해라.” 하시며 수백, 수천, 수만 가지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신다. 고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한 자>는 다양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며 살게 된다.

13. 세상 사람들은 ‘사랑’ 하면 ‘남녀의 이성 사랑’만 생각한다. <물질>을 사랑해도 ‘사랑’이요, <그림>을 사랑해도 ‘사랑’이다. 그리고 <어떤 존재물>을 사랑해도 ‘사랑’이다.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이라야 ‘영원성’이 있다.

14.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서 하는 사랑>은 ‘육신 일생’도 아니고, ‘육신이 그 생각을 할 때까지만 지속되는 사랑’이다. <생각>에서 잊으면 못 하는 것이다.

15. <생각, 정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

16. <생각>이 죽으면, 죽은 것이다.<기억>이 안 나면, 죽은 것이다.

17. <잊어버린 것>도 죽은 것이다.

18. <생각>이 났어도 행하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죽은 것이다.

19. <생각, 정신>이 난다 긴다 해야 된다. 노련해야 된다. <신>이 돼야 한다.

20. 이미 <신이 되는 말씀>을 줬으니,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자꾸 처지고 주저앉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전진하는 사람들은 이미 딴 세상에 가 있고, 자기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

21. <하나님>만 향해서 돌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돼야 한다.

22.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 정신’이 세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 향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선생은 70일을 굶었어도 ‘하나님 사랑의 길’로 갔다. <하나님의 정신, 성령님의 정신, 성자의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명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사탄과 흑암을 이기며 왔다.

23. 사람은 ‘정신’이 살아야 된다. <정신>이 흐리멍덩하지 않고 확실해야 된다.

24. <생각>이 ‘생명’이다. <생각>에서 잊으면 안 된다.

25. 끝까지 행해라. 하다 말면 안 된다. <집>을 짓다가 말겠느냐. <구원>을 받다가 말겠느냐. <휴거>를 이루다 말겠느냐. 완전히 해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니라.

26. 끝까지 해서 구원받고 휴거돼야 ‘하나님의 것’이 돼서 천국을 이룬다.

27. <영적 사랑>이란, ‘자기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신, 생각,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 생각, 마음>을 가지고 ‘육신’이 행해야 된다. 가령 형제가 배고프면 ‘밥을 줘야겠다.’ 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행해야 된다.

28. 하나님도, 사람들도, 형제들도 미워하지 않고 100% 사랑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해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100%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29. 100% 사랑을 받으려면, 100% 사랑해라.

30. 100% 사랑하지 않고, 100% 사랑받지 않고서는 ‘하늘나라, 사랑의 세계’에 자기 집을 100% 건설하지 못한다. 마치 집을 짓다 만 자와 같아서 벽은 만들었는데 지붕이 없는 것과 같다.

3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나 형제들을 미워한 자의 영>은 ‘하늘 편에 속한 영의 사자들’에게 잡혀가서 ‘죄인의 옥’에 갇히게 된다. 고로 그 영이 ‘하나의 사망권’에 처하게 된다. 고로 그 육도 묶여 있는 삶을 살게 된다.

32. <형제들을 미워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신다.

33. 회개해야 <구속된 영>이 ‘구속된 세계’에서 나오게 된다. 나올 때는 <메시아>가 그의 증인이 되어 줘야 나온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아라.

34. 일을 하다 보면, 상대의 말을 듣고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 이는 자기가 모르고 했어도 ‘죄’다.
35.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에서 못 나온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된다.
36. 사랑하려면, 배우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고, 주와 같이 해라.
37.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것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그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만다. 그것 ‘하나’밖에 모른다. 그러면 ‘사랑’이 아주 작다. <하나님 사랑>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사랑이 있다.
38.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어마어마한 사랑을 할 수가 있지, ‘자기’를 중심해서는 그 사랑이 작다. <땀>에서 물을 쓰면 무한정으로 쓸 수 있지만, <작은 도량>에서 물을 쓰면 무한정으로 쓸 수 없는 것과 같다.
39. <하나님의 사랑>을 ‘핵’으로 삼고 행해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된다.
40. <남녀 이성의 사랑>은 ‘가느다란 한 줄기 사랑’이다. 말초 신경 몇 가닥이 ‘뇌’에 연결되어 있다. 고로 그 신경을 자극하면 그 한두 가지만 사랑이 일어난다. 그러나 <뇌의 신경 덩이>에는 그보다 3000배, 5000배, 7000배 더 많은 신경이 뻗어 있어서 ‘뇌 사랑, 영적인 사랑’을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사랑을 한다.
41. 하나님은 ‘그림’으로도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로도 사랑을 나타내시고, ‘만물’로도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라.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전해 주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관해 자세하게 나로 하여금 설명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을 하라. 벗어나면 사탄이 개입한다. 자기 주관권으로 넘어간다. 100% 사랑을 받으려면, 100%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도 100% 사랑하라. 그런 사랑을 다양하게 이뤄서 황금 천국, 수백 가지 찬란한 빛으로 싸인 곳에, 100% 맞는 곳으로 자기 영이 가서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누리 고 싶지 않다. 나 여호와가 100% 사랑을 위해서 창조한 목적을 깨달아라. 지구 세상,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한 목적 을 알아라. 무한한 사랑을 주고 무한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생들을 내가 창조하였노라. 이것을 너희가 마지막에 깨달 고 행해야 된다. 후대 사람은 후대에 할 일이지만, 너희는 지금 당장 보낸 주로 인해서 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너희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뜻을 오늘도 깨닫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형제의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고,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100% 받는 사랑하 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사탄을 멸하고, 흑암을 멸하며 모든 미워하는 자를 멸하노니,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 지고 없어질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이 ‘제일’이다.
2. <사랑>이 제일 아름답다.
3. <존재물>마다 ‘사랑할 만한 곳’을 가지고 있다. 가령 <소나무를 사 올 때>도 보면, 여러 소나무들 중에 꼬불꼬불하 게 생겼든지, 혹은 수형이 멋있든지, 혹은 밑동이 굵든지, 혹은 위의 가지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삼위일체같이 생겼든 지, 혹은 사연이 있든지 하면, 그것에 ‘사랑’이 꽃혀서 사 오게 된다. <돌을 사 올 때>도 ‘형상’을 보고 사 오기도 하 고, 혹은 형상이 없어도 ‘단단한 차돌, 흰 돌’이라서 사 오기도 한다. <흰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사 온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물은 ‘사랑의 핵’을 가지고 있다. <사랑할 만한 곳>이 ‘제일 아름다운 곳’이 된다.
4. <사랑하는 자>를 택할 때도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을 가지고 택한다. 가령 <얼굴>은 마음에 들었는데, ‘발’이 마음 에 안 들든지, 혹은 ‘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 것을 ‘핵’으로 삼고 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정론’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보고 예정했는데, <저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셨다. 모든 존재물은 ‘사랑의 핵’을 가지고 있다. 고로 다른

것은 별로여도 그 하나 ‘핵’을 사랑하면, 다른 것도 사랑으로 보이게 된다.

5. <선(善)>을 행하면 ‘선’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 <충성>을 하면 ‘충성’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

6.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그중 <사랑>이 제일 아름답다.

7. <사랑>으로 볼 때 제일 아름답다. <사람>도 그러하고, <존재물>도 그러하다.

8. <전도할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전도하려는 그 대상’을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전도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음>도, <행실>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다.

9. <뇌>가 ‘사랑’으로 보고 인식하면, ‘사랑’으로 보여진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으로 본다는 것이다.

10.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신다.

11. <사랑>으로 볼 때 ‘사랑의 세계’를 찾을 수 있다.

12. <미움>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다.

13.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체’이다.

14.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도 나아가고, ‘소망’으로도 나아가고, ‘회개’로도 나아간다. 그러나 결국은 ‘사랑’하려고 나아가는 것이다.

15. 만일 하나님께 ‘사랑’ 없이 믿음으로만 나아가고, 소망으로만 나아가고, 감사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울리는 꿩과리>가 되고 만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깨지고 ‘소망’도 깨진다. 만일 하나님께 믿음도, 소망도 없이 ‘사랑’으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꺾질을 깬 과일을 금 쟁반에 담아 주는 격이니,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다.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면, 성령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해 달라고 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실력껏 안 것이 증거이니라. 네 실력은 네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치가 그러하지 않느냐? <두 개>에다 <두 개>를 더하면 ‘네 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 성령도 증거가 되고, 너도 증거가 돼야 한다.” 하셨다.

16. 사랑 하나면, ‘역사’는 이루고 끝난다.

17. <사랑의 하나님>이다.

18. <외적 하나님 사랑>, <내적 성령님 사랑>이다.

19. <삼위일체>는 ‘사랑의 본체’이다. <삼위일체의 대상체>는 ‘메시아’다. 그리고 <땅의 사랑의 본체>는 ‘메시아’다. <그 대상체>는 ‘구원받은 자’다.

20. 구원을 시켰으면,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

21. <사랑>으로 ‘구원’시킨다. <사랑>으로 ‘구원’을 유지한다. <사랑>으로 ‘존재의 세계’를 유지한다.

22. <나무>도 ‘사랑’해야 좋아서 계속 관리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진다. <사람>도 그러하니, 항상 사랑하며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

23.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 <사랑의 관리, 인격 관리, 이미지 관리>다. ◎ 여기까지 <사랑에 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일은 ‘클라이맥스(climax) 말씀’을 또 해 주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었고, 열렬하게 우리에게 사랑이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사랑을 꼭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의 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없는 자, 진실한 사랑이 아닌 자는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대로 거기에 맞는 희망이 열린다. 참된 진실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뜻도 이룬다. 사랑을 벗어난 자는 그건 외식자요, 핼과리요, 고로 바로 사람들에게 들통 날 것이다. 무릎을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내침을 받을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모두 살아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하며, 성령께서 늘 사랑 속에 감동시키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차고 넘치게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 속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 못 하게 내가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사탄 세계를 뽕뽕 묶으사 인간의 책임을 제대로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사랑을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해서는 인간이 존재를 못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 환경,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등 모든 존재의 세계를 사랑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통치해 주셔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2. <사탄>도, <미워하는 자>도, <막는 자>도, <무지로 행한 자>도 그냥 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존재하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지옥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안 되게 틀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행하시며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3.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 -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가다 ‘멸망의 길’로 간다.
4. <섭리사를 가다가 사상이 변하고, 정신이 변하고, 잘못 생각하고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주>가 ‘말’로 심판하면, 그 말대로 사망으로 가고 흑암으로 가기도 한다.
5. 특히 <하나님이 땅의 보좌, 성전에서 하시는 일을 터치하는 자들>, <목숨을 걸고 시대 역사를 펴 나가는 증거자를 험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을 감행하신다.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네가 그리하였은즉, 내가 정녕코 행한다.” 말씀하셨다. 고로 이미 <영적인 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거기서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도 있다.
6.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을 거스른 자들은 역시 ‘말씀의 검’으로 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렇게도 무섭다.
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씀의 검이 무섭고 두려운 줄을 알고 행하여라.” 하셨다.
8.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고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 주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9. 하나님은 <사랑>을 제일로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심판하신다.
10. 자기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 <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신다. 고로 그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말씀을 선포해 가신다.
11.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면, 너희는 알지어다. 항상 온전함을 받아라. 그리함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12. 하나님도 주도 ‘사랑’으로 대해 줬는데,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13. <구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 이뤄져, 그때 ‘구원’에 겨우 들어간다. 그다음 단계는 ‘시대 최고의 법, 시대 말씀’을 100% 실천해야 ‘휴거’에 들어간다.
14. <하나님>과 <주>만 사랑해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주가 사랑하는 자들>도 사랑해야 휴거가 된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성취돼야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휴거’가 이뤄진다.
15. <사랑>이 ‘땅’에서도 이뤄질 때, ‘하늘’에서도 이뤄진다. 항상 <주>를 신랑으로 삼고, <주>를 중심해서 해야 된다.
16.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보낸 자’를 쓰고 나타나신다. <선지자 때>는 ‘선지자’를 쓰고 나타나시고, <사사 때>는 ‘사사’를 쓰고 나타나시고, <메시아 때>는 ‘메시아’를 쓰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다.
17.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쓰고 직접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에게는 직접 말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꿈이나 만물을 통해 계시하고 말씀한다.” 하셨다.
18. 하나님을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
19.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옳은 줄 알고 하는데, 그것이 ‘무지한 행동일 때’가 있다. “옳다.” 하는 <주>의 어인을 완전히 받아야 된다.
20. <주의 한마디 말>을 듣고, 그것을 ‘백 마디 말로 이용하는 것’도 죄다. <그 한마디 말씀>에 해당되는 것에만 주의 말을 써야 된다. 나머지는 쓰면 안 된다.
21. <주의 이름>을 이용해도 안 된다.
22. <주의 말씀>을 ‘형제를 미워하는 데’에 쓰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해하는 데’에 쓰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다.
23.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면, 무섭게 행하신다. <성령님>은 그런 자들이 있으면 영원히 용서를 안 하신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영원히 용서가 안 된다.
24. <성령>을 흠잡고, <성령의 상징체>를 흠잡고, 욕하고, 고소한 자들은 그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안 하면 안 된다.
25. <휴거>가 쉬운 것이 아니다. <메시아>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법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 <메시아>는 더욱 ‘하나님의 법’을 엄중하게 지킨다. 왜?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이다. 다만 ‘메시아’는 다른 것이 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자’였다. 고로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법’에 걸리지 않았다. <세상 법>도 ‘임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 가령 <경찰>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속 120km, 150km로 달려도 ‘법’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다.
26.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지구상의 76억 명이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하며 이유를 걸어도, 거기에 하나도 걸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한한 세계’임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지구를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존재자이시다. <만든 자>는 원리를 알기 때문이다.
27.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하루에도 100억 가지도 더 하신다.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늘 앞에 한 일들을 보시고, 만물들을 운행하시며 각종으로 일을 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안 살피신다면 인간은 하루도 존재를 못 한다. 그냥 놔두면 실수해서 죽기도 하고, 별일을 다 당한다. <만물>도, <환경>도 하나님이 살피지 않으면 존재를 못 한다.
28. 한번은 선생이 하루에 200가지, 220가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은 하루에 몇 가지씩 일을 하시느냐고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짓수를 계산하면 끝이 없다. 각 사람들을 한 가지씩만 도왔다고 해도 70억 가지가 넘고, 그들이 사랑하는 만물도 돕고, 역사를 도우니 100억 가지도 더 된다.” 하셨다.

29. 하나님도 성령님도 날마다 우리를 불꽃같이 살피시며 도우시고 함께해 주신다.

30. 하나님이 ‘하루’만 일을 안 하시면 큰일 난다. 가령 <호흡기를 쫓아 놓은 자>가 있는데, 호흡기가 고장 나서 작동을 안 하면 그 사람은 금방 죽어 버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면 죽는다.

31.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아느냐?” 하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고로 <육>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라.

3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위해서 단장하고 사랑하고, 자기 버릇도 고치고 깨끗하게 하여라.

33. <사랑>을 퍼부어 줘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섭리사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섭리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라.

34.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일체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형제를 힐문하기 위한 기도, 심판을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 공의롭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여라. <말씀>을 듣고 ‘사랑의 불’을 붙여 쬔으니, 모두 사랑에 불이 붙어 행하여라.

35. (하나님) <신부들>은 ‘말’이 과격해도 안 되고, ‘성격’이 과격해도 안 된다. 내게 말기고 하여라. 나 여호와를 친히 기억하여라. <원수를 갚는 일>도 내게 맡겨라. 내가 하면, 골치만 아프다. 잘못하면, 무지 속에서 상극 세계도 일어나니 안 된다. 내게 권한을 맡기고 하여라.

36. 사람이 ‘사랑을 받은 것’은 기억한다. 항상 <사랑>을 중심해서 행하여라. <사랑>을 잊으면, 죽는다.

37. <사랑>을 잊지 말고, <사랑의 희열>을 느끼면서 항상 모든 것을 행하여라. 그래야 안 죽는다.

38. <사랑받은 것>을 잊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상실된 자’다.

39.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주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잊으면, 사랑이 죽어 버린다. <사랑>이 죽으면, ‘사랑의 역사’가 끊어진다. 이는 절대 법칙의 말씀이다.

40. 구원받고 휴거되면,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사랑’만 한다. 자동적으로 밤낮 주야로 계속 ‘사랑’을 한다. <사랑의 기계>가 계속 돌아간다. 하나님은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랑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영원히 사랑하며 산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주’를 통해 말씀을 주시어 구원시키시고 생명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41.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서 ‘사랑’만 하며 나아간다. <사랑>이 ‘제일’이다.

42. 하나님은 ‘사랑’만 보신다. <사랑하는 자>를 ‘최고’로 보신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 나머지는 본인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서 들었는데, 너무나도 폭 빠져서 들었습니다. 감사, 감격하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니, 설교에도 다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영원하게 해 주시고 끊임없이 해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극진하며 극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행한다고 하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이 온전케 되기를 내가 선포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모두 터치하고, 잘못했다고 막 고소하고 하는 자들, 이들은 엄히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그러

지 않으면 네 생명에 해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역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이 역사에 손을 대느냐? 하나님이 이 지상의 땅에 전을 뒀는데, 전에 대해 이리궁저리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지만, 이것을 행한 자는 무를 꿔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녕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했으니, 모두 생명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이다. 만군의 하나님, 회개치 않은 자는 하나님이 늘 칼을 갈고, 말씀의 검을 갈아서 날리신다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땅에 둔 하나님의 이 전을 늘 지키시고, 늘 그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니 말씀이 선포가 되어 하나님의 검이 오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소홀히 보지 말지이다. 그 검은 우주 세계,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마귀, 사탄, 귀신들, 악령들, 그리고 악령이 들리고 마귀가 들리고, 귀신이 들려서 행하는 자들까지 멸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데, 왜 책임을 못 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이 크시니,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여호수아 대군들이 되고, 시대 하나님의 신부들이 모두 대군이 되어서 시대를 지켜 행함이 합당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의 휴거 역사를 이루어 버렸습니다. 휴거된 자들의 권한과 권세와 세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 의인들이라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 항상 당연하시고 합당하시며, 그리고 영원까지 합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늘 우리가 수종들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충만할지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온전하게 행하지 않아서 사기도 당하고, 손해가 가는 일이 많이 있다. 온전하게 행하면 사기도 당하지 않고 손해도 안 간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것도 당하지 않게 된다. 고로 온전하게 행하여라.
2.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가 안 된다.
3. <성령님>과 일체 되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대로 하여라.
4.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해서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고, 이야 기해야 된다. 그러면 <육>으로는 '만물 계시'를 보여 주시고, <혼>으로는 '꿈'으로 보여 주시고, <영>으로는 '영계'도 보여 주신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온전하게 일체 되어라.
6. <온전한 말씀>을 늘 전해 주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7. 자꾸 하면, 온전해진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진다.
8. 온전하게 되려면, 또 해 보고, 또 해 보면 된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9. <온전하게 하는 것>도 자꾸 해 버릇하면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자꾸 해라. 그러면 온전하게 된다.
10.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가 안 된 사람'이다. 고로 말씀을 들어도 행해지지 않는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돼야 해진다.
12. <온전하게 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생각하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겠다고 결심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13. 무엇이든지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못 한다. <생각>이 '생명'이다. 고로 <생각>을 안 하면, '생명'이 존재하지를 못 한다. 항상 생각해야 된다.

14. <행위>도 먼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고로 <생각>이 안 나면, 그날 해야 될 일도 못 한다. 그래서 <생각났을 때>는 꼭 써 놔야 된다. 써 놓고 외워야지, 안 써 놓고 외우려면 힘들다.

15. <사랑>하면, 안 잊어버린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기어코 안 잊어버리고 행한다.

16. <사랑의 주체>가 잊어버리면 ‘사랑의 대상’이 이야기해 주고, <사랑의 대상>이 잊어버리면 ‘사랑의 주체’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17. <양단의 세계>가 서로 하나 돼서 자꾸 해야 된다. <끌고 가는 자>와 <따르는 자>가 서로 하나 돼서 ‘시대 역사’를 펴나가야 된다.

18.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낙심치도 말고 해라.

19.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된다. 특히 지도자들, 사업하는 자들은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된다.

20. <사기꾼>에 대해서도 모르면 안 된다.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 알고 조심해야 된다. 요즘 사기꾼들은 자기도 같이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게 만든다. 가령 7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건물 주인이 빨리 팔아 버리려고 한다면서 자기와 각각 10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사자고 한다. 그런데 그 건물은 이미 사기꾼의 것이다. 고로 나중에는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건물을 못 사게 됐다고 한다. 이같이 건물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사기꾼들의 술법은 수만 가지가 있다. <다단계>도 하나의 사기성이 있는 일이다. 법 문제에 해당이 안 되게 교묘하게 술법을 쓴다. 고로 완벽하게 알고 행해야 된다.

21.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사기에 해당된다.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하나의 사기에 해당된다.

22. 선생은 사기꾼들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때려 달라고 늘 기도한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는 꼭 들어 주신다.

23. 선생이 예전에 청주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해 준다. 그러나 네가 모른 만큼 당했으니 모른 것을 통탄하고, 앞으로는 몰라서 안 된다. 꼭 알아야 된다.” 하셨다. 그러고서 경제적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 10년, 20년 후에 문제가 해결됐다. 그때 깨달기를, ‘몰라서 사기를 당한 것이다. 고로 내가 알아야겠다. 알고 신이 되어야겠다.’ 했다. 그리고 그때 <예정>에 대해서도 깨달았다.

24. 성경에도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 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고로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메시아가 온다.’ 하는 성경의 예언은 절대 예정됐다.

25. 하나님은 <좋은 것>은 예정하셨지만, <나쁜 것>은 예정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쁘게 행하면, 자기 행위로 인해 그 나쁜 것 속에 들어가게 된다. 즉, <자기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26. <자기 행위>로 자기를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자기 행위>로 자기를 ‘천국’으로 가게 한다.

27.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과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자기가 ‘지옥 길’을 가면 ‘지옥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고, 자기가 ‘천국 길’을 가면 ‘천국의 운명’이 예정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옥 길을 가는 것>과 <천국 길을 가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자기 행위>로 ‘지옥 길’을 가고, <자기 행위>로 ‘천국 길’을 간다.

28. <길>은 결정되어 있어도, ‘사람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고로 성경에도 “<사망 길>로 가지 마라. <생명 길>로 가라.” 했다.

29.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지 않아서 ‘사망 길’로 간다.

30.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면, ‘사망 길’로 안 가고 ‘천국 길’로 간다.

31.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기 당하고, 일을 저지르고 고통을 당한다.

32. 야심작의 돌을 완벽하게 세웠듯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 ◎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내일 아침에 또 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말씀을 읽으니 그대로 행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생각에서 온전히 행하자.”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게 늘 생각의 축복을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하라. 힘이 없어 못 하지 않는다.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냐. 행하면 되는 거다. 98% 행했는데 100% 그걸 못 하느냐. 조금 두 발자국 더 가면 되는데, 안 해서 안 된다. 조금 안 해서 받는 그 손해는 엄청나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모두 그대로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 어다. 아멘.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완전하게 행하면, ‘완전한 것’을 얻는다.

2. <완전한 것>은 ‘최고의 것’이다. 완전하게 행하면, <최고 아름다운 것, 최고 튼튼한 것, 최고 마음에 드는 것, 최고 비싼 것>을 ‘완전함’으로 값을 주고 얻는다.

3. 어렸을 때부터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지도자들>이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된다. 확실히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준 사람’이 책임을 다 져야 된다.

4. <전도하는 자>는 ‘완전한 자’다. <전도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완전하지 못한 자’다.

5. <관리하는 자>는 ‘완전한 자’다. <관리하지 않는 자>는 ‘완전하지 못한 자’다.

6. <깊은 말씀>을 전해 주는데, 말씀을 깊이 안 듣는 사람은 ‘뇌, 생각, 정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다. <온전한 자>는 말씀이 ‘뇌, 생각, 정신, 마음’에 절대적으로 꽂힌다.

7. <성령님과 일체 되지 못한 자,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자>는 ‘온전하지 못한 자’다.

8.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너희가 나 성령과 일체 되지 못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고로 행해지지 않는다. 이런 자는 ‘육적인 자’다. <영적인 자>가 되려면, 영적인 근본자인 하나님과 나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야 한다. <영적인 자>라야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를 차지할 수 있다.” 하셨다.

9. <영적인 자>란, ‘영적인 근본자인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자’다. 그와 같이 행하고,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10. <주의 마음과 생각과 일체 되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일 크다. 그 외에는 없다.

11. 주와 같이 살려면, ‘주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그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추고, ‘공홀’을 베풀며 ‘선악을 구분한 사랑, 실천의 사랑’을 해야 된다.

12. <실천>하지 않고서는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13. <실천>으로 결론짓는 것이지, <실천>하지 않고서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다.

14.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실천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

15. <실천>이 중요하다. 가령 <자기가 찾던 사랑의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발견했다 하자. 그때 ‘드디어 발견했다.’ 하고 마음 잔치만 하고 끝나면, 실제 사랑 잔치를 못 한다. 혹은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있어서 시장에서 그 옷을 찾으러 다녔다고 하자.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옷’이 있으면 바로 사야 된다. 좋아만 하고 끝내면, 바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옷을 사 간다. 고로 <순간의 기회>에 행해야 된다. 행해야 ‘완전한 자’다. 행해야 ‘완전한 것’을 얻을 수 있다.

16. <실천할 때>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안 다음에 그때 ‘결론’을 내려야 된다. 많이 알아야 많이 행할 수 있다.

17. <완전한 것>을 구하고, 찾아라. <완전한 것>이 있으면, 바로 실천해야 된다.

18. <실천> 없이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19. <완전하게 사랑하는 자>만이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

20.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하게 말씀을 배워서 행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얻고 살게 된다.

21.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완전에 대한 것’을 주지 않으신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보통으로 사랑해서는 마음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행실도 안 준다. <자기>가 완전하게 사랑해야 된다.

22. <순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는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없다. 일생 동안 완전하게 행해야 ‘완전한 자’로 볼 수 있다.

23. <월명동의 돌>도 ‘한 가지’만 보고 완전하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세웠는지, 강도가 좋은지, 생긴 것이 잘생기고 멋있는지, 크기가 큰지 ? 이런 것들을 보고 ‘완전에 해당되는 점수’를 매긴다. 이와 같이 구색이 갖춰져야 된다.

24. <섭리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시대 역사’를 펴시기 위해 ‘온전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은 ‘생명’이며, 영원하다.

25. <말씀>이 온전하니, 사탄은 ‘온전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자’를 잡아먹지 못한다. <사탄>은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를 잡아먹는다. 고로 <온전히 행하지 않은 자들>은 ‘사탄의 배설물’이 됐다. <사탄의 배설물이 된 자들>은 ‘지옥’에 가 있다. 온전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

26.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기성의 주장>은 ‘틀린 말’이다. - 이 말은 ‘메시아’만 할 수 있다. 왜? <본인>이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온다, 안 온다>는 것은 <메시아>만 안다. 곧 ‘신약의 메시아’만 알고, ‘그다음에 오는 메시아’만 안다. <바통을 줄 사람>과 <바통을 받을 사람>만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세 때 아는 자가 있으니, 곧 ‘증거자’다. <조은 목사>는 확실히 알고 절대 흔들림이 없다. 신약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몰랐다. 고로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께 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일체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 배웠으면, 확실히 알았을 것이다.

27. <예수님이 안 온다는 것>은 ‘메시아’만 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수천 번을 이야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도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예수님은 ‘다음 바통을 받을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세상에서도 <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꼭 필요한 것은 ‘다음에 바통을 받을 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 <교역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것은 다음에 오는 교역자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고 떠나야 된다. 이와 같이 <역사의 주인>도 ‘다음 바통을 받을 자’에게 인수인계를 해 준다는 것이다.

28. 선생이 20세가 넘어서부터는 하나님께 늘 내가 무엇을 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고 기도했다. 그때는 월남 갔다 와서 새 집을 짓고 살 때였다. 어느 날 밭에 갔다가 방에 들어왔는데, 밤인데도 방이 흰했다. 그래서 보니, 방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 예수님께 왜 오셨느냐고 하니, “너, 하나님께 취직시켜 달라고 했어? 그거 전해 주려고 왔다.” 하셨다. 그

런데 불을 켜니 예수님이 안 보였다. 그래서 불을 다시 켜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안 보였다. 고로 기도했다. 기도해서 영계를 봐야 되기 때문이다. 기도하니, 영계에서 예수님이 보였다. 예수님이 “이제 취직자리 보러 가자.” 하셔서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금방 들어줬다. 선생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나는 늘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으니 실컷 먹을 수 있는 데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 예수님은 과일이 많은 데서 실컷 먹고 살라고 제주도의 밀감 농사를 짓는 장로님 집에 나를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사람들이 밀감을 따는 것을 보니, 그들은 만족 없이 살고 있었다. 고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밀감을 실컷 먹고 살아도 그것 하나로는 만족이 없겠구나.’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곳은 싫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셨다. 다음에는 부산의 한 시장으로 갔다. 거기에는 선생이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새우, 멸치, 김 같은 것을 파는 곳이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권사님에게 나를 소개해 주니, 그 권사님은 걱정하지 말라면서 내게 보수도 많이 주겠다고 했다. 그때 보니, 이 집에서도 평생 만족이 없을 것 같았다. 고로 ‘내가 오징어를 실컷 먹어 봤자, 평생 잘 먹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을 쳐다보니, ‘내가 언제 이 장사를 안 하고 다른 데서 편히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마음을 선생이 꿰뚫어 보고 ‘나도 별 볼 일 없겠다.’ 하고 그 일도 안 하겠다고 했다. 그다음에는 선생이 공부를 못 한 것이 한이 됐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공부하는 데로 데리고 가셨다. 거기서 보니, 가르치는 자도 머리 아파하고, 배우는 자도 머리 아파했다. 고로 예수님께 이것도 안 하겠다고 했다. 그다음에는 선생이 평생에 돈이 없으니, 돈을 좀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 산(山)기도를 할 때 밤이면 불을 밝혀야 했는데 호롱불로 밝혔었다. 호롱불 기름을 살 때 보리와 녹두를 팔아서 기름을 샀다.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되면 늘 돈 때문에 걱정을 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회사의 사장에게 선생을 데려갔다. 예수님이 가니, 그 사장은 기절초풍하면서 그저 놀아도 봉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장을 보니 회사 경영을 하면서도 그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았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죽 보니,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을 고달파했다.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할 수 없이 해야지.’ 하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 흰히 보이니, 선생 역시 이곳에서도 평생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를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선생이 벌어먹는 것은 책임지고 할 테니, 따라다니는 것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다. 고로 선생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배고파도 괜찮고, 봉급을 안 줘도 괜찮다고 하며 평생 후회 없이 살겠다고 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다 도시를 다 지나 더 이상 취직자리를 알아볼 수 없는 장소까지 오게 됐다. 그곳은 큰 벌판이었다. 그곳에 흰옷을 입고 인자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너도 해라.” 하셨다. 그때 예수님을 보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 너도 충분히 그릴 수 있다. 이 붓을 받아라. 너도 저기서 해라.” 하시면서 내게 ‘붓’을 던져 주셨다. 예수님은 붓을 주시면서 “마지막 붓이니라.” 하셨다. 그 붓은 아주 큰 붓이었다. 예수님이 던져 준 붓을 한 번에 받고서, 예수님이 그리는 대로 선생도 같이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축소-확대 말씀 도표’였다. 예수님은 그 그림을 내게 보이면서 “내게는 이제 붓이 없다. 네가 쓰는 붓밖에 없다.” 하셨다. 그때 예수님이 쓰던 붓을 보니, 그 붓이 없어져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걸어가고 계셨다. 그래서 왜 나를 떼어 놓고 가느냐고 하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칼이 가슴에 박히는 듯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해라.” 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땅에서 떠서 올라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꾸 뒤를 쳐다보고 나에게 “꼭 해야 된다.” 하셨다. 그때 예수님께 ‘붓’을 받고 역사를 펴기 시작했다. 그때 <성약역사>를 위해 인수인계를 받은 것이다. 처음에는 ‘붓’에 대한 인봉을 못 풀었다. 그래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큰 기도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때 경기도 광주에서 70일 금식기도를 했다. 그러면서 ‘붓’에 대한 인봉을 뗐다. <붓>이 ‘말씀’인 것을 알았다. 그때 영계를 보니,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일이 쑥 보였다. <메시아>가 크는 과정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까지 보여 주셨다. 그것을 보고 ‘아, 나도 이같이 역사를 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하라고 하셨구나.’ 했다. 그때 ‘말씀’도 많이 썼다. 그러고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대둔산,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성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재림’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한 때 두 때 반 때 인봉’에 대해서도 완전히 깨닫고 매듭짓게 하셨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세계>를 완벽하게 공부했다. 성자께서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성자는 “세상 공부 안 해도,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씀만 전하면 된다.” 하셨다. 고로 마지막 산(山)기도를 끝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서서히 나갔다. 그때는 병든 자들에게 손만 대면 낫고, 말만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선생이 안수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안수기도 하는 것이 보였다. 그때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면서, “어떤 종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다. 그리고 “월명동에 앞으로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 사람에 묻힐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이니, 상상도 못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다녔다. 그때는

전도했어도 모일 장소가 없으니, 사람들이 수십 명씩 선생을 따라다니기만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성자와 의논하면서 땅의 일을 하늘에 올리는 일을 했다. 예수님이 ‘역사의 바통’을 준 대로 그 사명의 일을 했다. <말씀의 붓>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글로 써서 남기고, 그 말씀을 전해 줬다. 한자리에서 붓을 들고 3900자를 쓰기도 했다. 결국 나중에 와서 보니, ‘구원역사를 펴는 것’만이 지루함이 없고 평생 만족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깨달았다. 아마 다른 일을 했으면, 그것에는 만족치 못하고 다시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것이다. 그동안 공적 역사 40년뿐 아니라 그 전부터 해서 55년 정도를 뛰었는데, 지금도 이 사명을 그만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 성자께 다 배워서 나오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고 흔들림 없이 역사를 펴 왔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실 때 “칼이 네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일이 일어날 때가 많으나, 끝까지 가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와 같은 일이 40년 동안 일어났다. 그때마다 ‘<메시아>만 메시아가 하는 일을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하면서 참고 견디며 끝까지 행했다. ◎ 나머지 말씀은 꼭 전해 주겠습니다.

29. <완전한 하나님>이시니, ‘완전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먼저 완전한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30. <전쟁터>에서 완전하게 못 하면, 적이 쏜 총탄에 맞아 일순간에 죽는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70% 이상 제대로 못 해서 죽는 것이다.

31. 100% 제대로 하면, 사고도 안 나고 총에 맞아서 죽지도 않는다.

32. 완전하게 했는데 죽은 사람은 없다.

33. <온전한 자>만 ‘최고 온전한 곳, 황금성 천국’에 간다.

34. 온전하면, 오래 존재한다. <영>이 온전하면, 영원히 존재한다.

35. <사람>도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과 생각이 온전하면 ‘육신 일생’이라는 영원까지 살 수 있다. <육신>이 영원까지 산다는 것은 ‘육신 일생’ 동안 산다는 것이다.

36. 한국은 교통사고로 해마다 4000명 이상이 죽는다. 서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못 해서다.

37. (하나님) <온전한 말씀>만이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38. <성령>과 일체 돼야 온전해진다.

39. 온전하면, ‘온전함’과 바로 통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했으니, 온전한 말씀의 영영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가슴에 칼을 찌르는 듯한 뼈저린 고통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증거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증인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간구하옵니다. 날마다 온전해지는 연습을 하며 오늘도 영육이 잘되고 온전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완전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 배워야 된다. 배우지 않고서는 완전히 행해지지 않는다.

2. 완전히 행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에서도 그때마다 해당되는 것을 주신다.

3. 가령 나무로 집을 지을 때, 아예 100% 완벽하게 지어 놓으면 평생 동안 쓸 수 있다. 관리를 잘하면 100년, 500년, 700년, 1000년까지도 쓴다. 그런데 완벽하게 집을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집을 짓겠다는 정신>도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완전히 행하려면, <환경>도

필요하고, <정신>도 필요하고, <완전히 행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4. <나무 집>을 지어서 살려면 아예 완전하게 나무 집을 만들어야 그 집에서 살 수 있듯이, <자기>도 아예 ‘완전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행하는 것마다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다.

5. 완전하게 행하려면, 뇌 덩어리 자체를 ‘완전히 행하는 뇌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근본은 ‘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6. <뇌신경>을 움직이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으로 ‘신경’이 움직이고, ‘신경을 확대시킨 몸’이 움직인다.

7. <생각>으로 ‘뇌신경’도 작동하고, ‘몸’도 작동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밝히시기를,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다.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행해진다.” 하셨다. 고로 <뇌,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하게 행하도록 해야 된다.

8.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신의 생각’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하나 만들어야 된다. <흐리멍덩한 정신, 사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만들어진단다.

9. <생각>이 완벽해야 ‘완벽한 작품’이 나온다. 가령 생각에서 ‘길이 20m, 넓이 7m 황금비율로 만들겠다.’ 생각하고 만들었을 때 그 존재물이 완벽하게 나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되는 대로 만들면, 뒤죽박죽 된 존재물이 나온다.

10. <생각>에서 ‘확실한 구상, 목적, 명령’을 해 놓고 움직여야 된다.

11.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한다. 고로 하나님은 <행하는 것>을 안 보시고 “보나 마나 저 생각을 한 대로 그대로 한다.” 하고 바로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네 생각이 내 마음에 합당치 않다.” 하시며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12. 항상 <생각>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흐리멍덩한 생각>은 ‘흐리멍덩한 행동’을 낳게 된다.

13. <생각>이 온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다른 길은 다 ‘절벽 길, 암벽 길’이다. 그 길은 가 봤자 뻘하다. 떨어져 죽는 길이다.

14. <온전한 생각>을 하고 살 때 ‘신의 생각’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신의 생각’이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주>는 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해 준다.

15. 선생이 극적으로 기도하고 연단받고 배울 때 깨달은 것 중의 하나가 ‘인간의 무지’였다. <자기>는 다 안다고 하나, 99%는 모르고 행하고 있었다. 몰라서 죽고, 몰라서 사고 나고, 몰라서 재산도 날리고, 몰라서 더 이상 할 수 없게도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 정신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 자기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알게 해 주시고, 어느 때는 환경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신다.

16.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바른 길’로 가도록 ‘환경’을 트신다. 고로 주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행하신다.” 했다.

17. 하나님은 ‘생각, 마음’을 틀기도 하신다. <생각>만 하면, 몸은 그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도우실 때 ‘마음, 생각’을 틀어서 완전하게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트시면, 그대로 꼼짝도 못 하고 가게 된다.

18.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보면 ‘수백, 수천 가지’로 행하시는데, 이는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선생만 알게 행하신다. 어느 때는 선생에게도 안 알려 주고 여건을 틀어서 돕기도 하신다. 왜? 선생이 알면 말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합당하게 틀어서 역사하시고 도우셨다.

19. 저마다 자기를 ‘완전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완전한 덩어리>를 만들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몸 덩어리>,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은 <뇌 덩어리>,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생각 덩어리>다.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

20. 선생은 성경의 ‘불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10대 때 기성에서 주장하는 불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 기성에서는 “하나님이 불 심판을 하시면, 지구가 완전히 녹아진다. 지구가 멸망한다.” 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풀면서 “각 나라마다 원자폭탄이 있으니, 그것이 터지면 지구가 녹는다.” 혹은 “그것이 아니다. 우주에 변화가 일어나서 태양이 지구 가까이 온다. 그래서 지구가 녹는다.” 혹은 자연 재해로 인해 “지진이 나서 지구가 녹는다.” 하면서 각종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풀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푼 것이다. 선생은 그와 같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봤다. 순간 녹아 없어질 지구를 하나님께서 수십억 년 동안 만드셨겠느냐? 그럴 리가 만무하다. 사람을 봐도 그러하다. 새로운 집을 지어 났는데 누구 때문에 화난다고 멸하거나, 누가 말을 안 듣는다고 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구>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체질에 녹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를 축소하면 ‘인간’이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지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뜨거운 불>은 ‘말씀’이다. 선생은 이를 깨닫고 20대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와도 지구는 돈다. 해는 뜬다. 하나님은 지구를 더 살피시고 도우신다.” 했다.

21.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불 심판’을 ‘지구 멸망’으로만 봤다. 성경을 잘못 푸니,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고생만 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도망가거나, 혹은 “곧 휴거된다. 휴거돼서 올라가는 광경을 생각해 보아라! 기쁘지 않느냐?” 하면서 목청 높여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는 단 한 명도 휴거가 안 됐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안 오니 “성경은 거짓말이다. 비원리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하면서 불교로 가고,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히 시대 말씀을 전하고 다니자.” 하셨다. <태양같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천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육신을 쓰고 말씀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어 기성의 2세들이 이 역사에 오게 하시고,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오게 하셨다. 고로 <이 역사>는 월명동이 뒤바뀌듯 시대를 뒤바뀌 놓는 역사가 됐고, <확실성 있는 역사>가 됐다. <성약역사>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역사가 진행될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상상도 못 하게 찬란해진다.

22. <때>가 돼서 하나님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과 다르게 얼굴도, 눈도 태양같이 빛이 난다.’ 하면서 크게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의 예수님을 봐도, 그는 길가에 있는 한 포기의 풀같이 너무 순수하다고 했다. 소리도 안 지르고, 분을 내지도 않는다고 했다. 왜 그렇게 순하고 하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3. 만들어야 목적인 것이 창조되듯이,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24.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두고 행해서 만들듯이, <자기를 만들 때>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라.

25. 어떤 사람은 목욕탕에 가도 완전하게 때를 밀지 않고 온다. 그러고서 집에 오니 몸이 꿈꿈하고 간지럽다고 하면서 다시 물을 받아 놓고 씻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따르는 자>도 그러하고, <백성>도 그러하다. 왜 <죄의 때>를 밀다가 마느냐? <신부들>인데 100% 깨끗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다.

26. <죄 회개>도 100% 해서 깨끗이 하고, <육>도 100% 깨끗해야 된다. <머리를 감을 때>도, <이를 닦을 때>도 슬슬 하면 안 된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된다. <글씨를 쓸 때>도 100% 제대로 써야 된다. <운동을 할 때>도 조금 하다 말면 안 된다. 선생처럼 기어이 해야 ‘완성’에 이른다. ◎ 나머지는 오늘 밤에 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려면 뇌 덩어리부터 완전하게 만들고, 신경 덩어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행실 덩어리를 완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서는 생각 덩어리를 아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신세를 묶고,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니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겨울이 돼서 길이 얼면 미끄러우니, <차로 다니는 자들>은 ‘안전’에 대해 완전하게 해야 된다. <차>는 사람보다 빠르니, 조심해야 된다.
2.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길 자체가 나쁘면 헛일이다. <절벽 길>을 가는데 아무리 자기가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 실수 한 번 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이같이 <역사>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아무리 완전하게, 안전하게 산다고 해도 ‘역사 길’ 자체가 그릇되어 있으면 넘어지고 사고 난다.
3. <새 역사의 길을 가는 자들>은 ‘구시대의 길’을 써먹을 수가 없다. 가령 길을 가다 나무 기둥 하나를 주웠는데, 그 기둥이 오래돼서 썩었다고 하자. 그러면 아무리 기둥이 필요하다고 해도, ‘새 집을 짓는 사람’은 그 기둥을 안 쓴다. <현 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우리 집 기둥과 비슷하니 써도 되겠다.” 하고 갖다 쓴다.
4. <구시대 사고, 구시대 행동, 구시대 말씀>은 ‘새 시대’에서 쓸 것이 없다. <새 시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시대 신부가 되고, ‘천 년 역사’를 펴 갈 수 있다.
5. <하나님이 주신 시대 말씀>으로 충분히 ‘시대 역사’를 감당하며 갈 수 있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거기에 치중할 필요가 없다. 이것저것 더 담아서 얻으려다가 오히려 자기 생각이 바뀌고 섭리사를 따라오다 나간 자들이 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듣고 행하여라.
6. <결혼한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이 해 주는 말’만 들어도 충분히 신랑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산다.
7. <시대 말씀>은 무한하다. 그동안 전해 준 5만 잠언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대를 쫓고, 완전하게 살 수 있다.
8.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해 줄 말씀은 천 년 동안 해도 다 못 한다.” 하셨다.
9. 어려워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완전하게 해진다. 선생은 목이 쉬어서 말씀이 안 나와도 상관하지 않고 기어이 말씀을 전했다.
10. <부지런한 자, 열심히 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11. <새벽예배에 오는 자>는 ‘부지런한 자’요, <새벽예배에 오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이는 하나님이 평가하신 것이다. 고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새벽예배에 안 오는 자>는 ‘부지런하지 않은 자, 열심히 하지 않는 자’다.
12. <하고자 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13. <완전>이라는 것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할 일>을 하면, 완전한 것이다.
14.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기어이 행한다.
15. <의인들>이 완전하게 행한다.
16. <의>를 위해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17. <근신하고 긴장하며 깨어 있는 자>, <마음이 해이하지 않은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18. 긴장을 풀면,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다. 높은 절벽 길을 갈 때는 조심히 완전하게 발을 디디며 가야 된다.
19. <긴장하며 조심의 허리띠를 풀지 않는 자, 진리의 허리띠를 풀지 않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20. <확인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21. <주>를 쳐다보고, <주>를 향해 행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22. <주의 생각>을 알고, <주의 심정>을 아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모르면,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다. 고로 행하기는 행해도 다른 짓을 하고 있다.
23.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24. <세심한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25. <이상세계를 원하는 자, 보다 좋게 하려고 하는 자, 보다 희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 보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려고 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한다.
26. <하나님과 주께 보여 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혼자 하다 만다. 고로 <몸>은 같이 한다고 해도 ‘그 행한 것’은 같은 주관권에 있지 않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 보면, 다른 주관권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저 세상에서 보는 것>은 다르다. 똑같이 해야, 똑같이 나온다.
27. <달인들>은 무엇을 만들 때 그렇게도 완벽하게 만든다. <기술자, 능력자, 실력자들>이 완전하게 한다.
28. <운전>도 ‘달인들’이 완벽하게 한다.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을 하면, 순간 다른 데로 가진다.
29. <겪고 깨달은 자>가 더욱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30. <기술과 실력이 있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31. <시간을 귀히 쓰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32. <끝까지 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끝까지 하는 자>가 결국 행하고 만다.
33.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생명에 관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자기에게 ‘죽음과 어둠을 재촉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생명>에 관해 조심성 있게, 튼튼하게, 완전하게 해야 된다.
34.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35. <성령과 주와 함께 하는 자>가 온전하게 행하게 된다.
36. <빨리 행하는 자>가 보다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건물을 살 때>도, <물건을 살 때>도 빨리 행해서 완전하게 사게 됐다. 빨리 못 했을 때는 역시 눈 속에 묻히게 됐다.
37. <서두르는 자, 재촉하는 자들>이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38. 알고, 배우고, 행해 버릇해야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39. <새벽예배에 오는 자들>은 ‘새벽예배에 오는 버릇’이 든 것이다. 이는 ‘좋은 버릇’이다.

40. <지식과 지혜가 있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41. <기도하는 자>와 <사랑이 충만한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42. <얼고 기뻐하는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행하면 또 얻으니, 기뻐서 또 하게 된다.

43. <완전에 이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44. <건강한 자>가 완전하게 행하게 된다.

45. 완전하게 하면, 그렇게도 기쁘고 좋고 신바람이 난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뽕뽕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

46. 서로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서로 믿어 주고 의논하면서 일체 돼서 해야 된다.

47. <혼자>서는 완전하게 하기 힘들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완전하게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잡아 주고, 밀어 주고 당겨 주면서 서로가 하나 돼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재밌고 기쁘고 즐겁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였으니, 더욱 완전하게 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영적이어야 되고, 또 육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육신 세계도 알고 영적인 세계도 알고, 그다음 정신적이어야 되고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 잊으면 못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사, 행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는 옳은 일들이오니, 우리가 행하도록 성령으로 잡아 주시고 인자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도록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완전하게 행하는 때>가 있다. 이때 완전히 안 하면, 마치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듯 그러하다.

2.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보다 완전하게 하는 시대’가 있다. 곧, 하나님이 땅에 메시아를 보냈을 때다. 그 전의 역사는 ‘전초 역사’로서 완전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준비해 뒀다가,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목수’가 되어서 ‘역사의 집’을 짓는다.

3.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고서 그때부터 ‘진리의 말씀’을 하나씩 가르치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여호수아 때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시어 전쟁이 빨리 끝나니,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은 착각이 든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또한 “<하늘에서 보낸다는 것>은 진짜 하늘에서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서 보낸 자>를 하늘에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친다. 또한 “<실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가르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 회개하여 시대의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구름’이다. 예수님 때도 구름같이 둘러선 무리를 보라고 했다.” 하고 가르친다. 이같이 <메시아>는 완전하게 가르친다.

4. 인생들을 보면, 자기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아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두고 각종으로 풀면서 어떤 자는 “그 과일이 커서 하나를 따 먹고 육신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고, 또 어떤 자는 “그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시장에 가서 여러 과일을 사다 먹어 보니, 천도복숭아가 제일 맛있었다. 고로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천도복숭아다.”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자는 “천도복숭아가 아니라 그냥 복숭아다.” 하고, 또 다른 자는 “그것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사과다.” 하고, 또

다른 자는 “아니다. 그 과일은 특이한 과일이다. 열대 지방에만 있는 과일이다.” 하고, 또 어떤 자는 “우리가 흔히 먹는 포도다. 예수님 때도 포도주를 먹지 않았느냐.” 하고, 또 어떤 자는 “털이 난 과일이 아니냐? 그러니 옥수수다.” 한다. 이렇게 <선악과>를 두고 각종으로 풀었다. 어느 누가 성경을 읽어도 고정관념 없이 읽으면 답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했다. 여기서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면 생명나무는 아담이 아니겠느냐.

5. <메시아>가 와야 ‘성경’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아담>은 생명나무이고, <하와>는 선악과다. 성경을 보면,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고 임신했다. 잉태의 고통을 심히 겪으리라.” 했다. 고로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겪고 가인을 낳았고, 또 잉태의 고통을 겪고 아벨을 낳았다.

6. 완전하게 되려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를 따라야 된다.

7.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메시아’만 가르쳐서 내보냈기 때문에 오직 ‘그’만 안다.

8. <주>께 물어봐야 완전하게 알게 되고, <주>도 도와주면서 같이 하게 된다.

9. <생각이 낮은 자>는 완전하게 하지를 못한다.

10. <여호수아>같이 담대해야 완전하게 하게 된다.

11. <완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꾸 완전하게 하게 된다.

12. 완전하게 행하면, 속이 편하고 마음이 놓인다. 할 일을 다 해서 보람을 느낀다.

13. 완전하게 안 하면, 손해가 가고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

14. <완전하게 안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다. <완전하게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를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15. 만일 <기성인들>이 주께 물어봤으면, ‘새 시대’를 완전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뛰고 달렸을 것이다. <기성>은 ‘기성’대로 사는 것이 뜻이 아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새 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야 된다.

16. 자기 마음, 자기 중심으로 하면, 저들같이 ‘불완전한 진리 속’에서 부활되지 못하고 사망권에서 살게 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됐을 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

18. <완전히 행하는 것>에도 ‘차원’이 있다. 고로 <어린이가 완전히 한 것>과, <청년이 완전히 한 것>과, <나이든 자가 완전히 한 것>과, <주가 완전히 한 것>은 다르다.

19. <완전히 행하는 철학>을 가지고 하면, 100% 성공한다.

20.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께 물어보고 행하여라. <주>는 ‘자기 주관권의 시대’라서 안다. 그리고 늘 여러 보고를 받아서 알고, ‘하나님의 욕’이라 안다.

21. 완전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고 행하는 일’인데도 무지 속에서 상극하고 싸우게 된다.

22.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쪼개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 상징인 ‘솔개’가 쫓아왔다. 제물을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 사탄이 개입한 것이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

이 되어 그들을 섬기리라.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하셨다.

23. 항상 쪼개서 섭리해야 된다. <가인>, <아벨> 쪼개기다.

24. <주를 모르는 자>, <주를 아는 자> 쪼개서 대하기다.

25. <옛 시대>, <새 시대> 쪼개서 대하고 행하기다. 그래야 안전하고, 완전하고, 온전하다.

26. <사람을 대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온전하게 하기다.

27. 온전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

28. <할 일>도 거기에 대한 사명자가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알고 한다.

29. <행하기 전>에 온전히 행할 것을 확인하고, <행하는 중>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하고 난 후>에 온전히 행했는지 확인하여라.

30. <성경>을 보아라. <온전한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라.

31. <시대 말씀>을 자꾸 보아라. 깨닫고 행하여라.

32.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즉시 행하여라.

33. 온전하게 행하려면 <생각>에서, <행위>에서 ‘온전히 행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 행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고와 해됨이 없게 늘 지켜 주시고, 완벽하게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을 부르며 주를 부르며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 ‘온전하게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냐고 물으니, “없다. 그동안 너희에게 다 전했으니, 이제 너희가 완전히 행하는 것만 남았느니라. 고로 부지런히 행하여라. 이미 너희가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말씀이 다 나갔노라.” 하셨다.

2. (성령님) <안 하는 자>와 <못 하는 자>는 ‘행하는 자들의 주관권’에서 같이 살 수가 없다.

3. <시간을 못 지키는 자들>은 ‘같은 차’를 탈 수도 없고, ‘같은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같은 시대’에서 살 수도 없다.

4. <안 하는 자, 못 하는 자>는 ‘희망’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능히 행한다.

6. <사랑>은 너무도 강하다. 고로 실천하게 한다.

7.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 하나님도 이 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했다. 고로 하나님은 이를 위해 최고로 도우신다고 했다. 이는 곧, ‘휴거’다. <휴거>를 가장 확실하게 이뤄야 되고, 가장 완전하게 이뤄야 된다. 이같이 어려운 휴거도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사랑>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이며 제일이다.

8. <사랑>하면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완전하게 하게 된다. 고로 누가 붙잡고, 막고, 방해해도 '사랑을 가진 자'는 완전하게 휴거를 이룬다.
9. <사랑의 힘>이 제일 크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10. <사랑>을 가지고 완전하게 행하여라.
11.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여라.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완전하게 믿고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함께 역사하시니, 그 능력과 권세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할 수 있다.
13. 이 말씀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데 '최고의 답'이다.
14.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15. 너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느냐?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사랑>에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그런 자는 여지없이 '사랑에서 탈락된 자의 운명'이 된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16.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주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갔다. 사랑하면 나갈 수가 없다.
17. <하나님과 주를 사랑함>으로 '구원'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을 받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구약 때>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약 때>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약 때>는 '애인, 신부'로서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며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마지막 최고의 휴거 역사'를 하는 것이다.
18.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의 전초'를 해 주고, '사랑의 근본'을 깨우쳐 주어라.
19. 사랑 때문에 '축복'도 받는 것이다.
20. 사랑 때문에 '황금성 천국'도 만들어 주는 것이다.
2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옥'으로 가 있다.
22. <주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은 자>는 그 하나라도 '구원'에 참여한 자가 없다. 미워하고 반대했어도, <주>는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줬다. 그래도 주를 믿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사랑 없는 심판'을 받아서 사망권에 처해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결국 <지옥의 문>을 자기 스스로 열고 들어간 것이다.
23. 사랑 때문에 너희를 가까이 대해 주고, 도운 것이다.
24. 사랑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것이다. ◎ 말씀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 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일체 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은 자는 마치 끈끈이 풀을 붙였는데 안 붙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풀로 다시 붙여 봤자 안 붙습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해 주고 한 주 동안 말씀해 준 것에 완전히 붙지 않으면, 언제 또 완전히 행하라는 말씀을 할지 모르니 이 시대는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행한 것처럼 완전히 행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데, 이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근본의 세계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서운하면 속 이야기를 하고, 또 화가 나면 속 이야기를 한다는데, 하나님도 사랑에 대한 것을 아시고, "너희가 행할 것은 사랑인데, 사랑을 내 보낸 자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미스가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도 그러하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간구하오니, 이들이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었으니, 이제 행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행하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행하는 대로 축복을 줄 것이요, 완전히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할 것이요, 표적도 일어난다.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바로 그날 즉시 표적이 일어나고, 그 순간 즉시 표적이 일어난다.”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데에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그 대로 될지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전하리오. 우리 섭리인들을 빼놓고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은 실제 새 시대의 주가 외치는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들만이 들었고, 이들만이 행할 수 있는 자들이오니,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섭리사의 모든 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 주를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파악해 보면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고 있습니다. 주인지를 확실히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섭리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주를 믿어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 사망권에 처해 계속 해를 받느니라. 시대도 마찬가지로이니, 시대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알고 사는데 그 정도로 살지 말고,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라. 그리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미련도 없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운동 게임을 했어도 완전하게 못 한 것은 늘 미련, 늘 아쉬움, 늘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라, 늘 쳐다만 봐도 ‘잘했으면 금메달 땀는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또 정자를 지어 놓고, 집을 지어 놓고, 운동장을 닦아 놓고도 완전하게 못 한 것은 ‘그때 잘했으면 큰 기둥으로 해서 만족할 텐데. 괜히 그랬네! 괜히 그랬네!’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같이 완전해서 큰 것으로 해 버리고, 완벽하게 해 버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뭘 맡겨 놓으면 미련하게 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도 외쳐 주고, 그렇게도 말해 줬는데.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쉬운 구원에서 끝나야 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남았으니 해 보아라. 1978년부터 40년이다. 40년이면 언제까지가 40년인지 생각해 보아라. 1978년부터 40년간이다. 40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3년 남았느냐? 2년 남았느냐? 1달 남았느냐? 2달 남았느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고, 이제는 겨우 22일만 남았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이제 22일 남았다. 1978년부터 40년을 더하라. 그러면 40년이면 하나님의 한 기간이 끝난다. 22일 남았으니 그 안에 완전히 행하여서 끝내 버려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께 우리가 배운 것이 많으니, 역사도 배우고, 시간도 배웠습니다. 어떤 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자기가 타야 될 차 소리가 들리고,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고 많은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 그렇게도 때를 가르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였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를 모시는 자들, 주께 가까이 있는 자들도 모시고 섬기고 하는 데 있어 하자가 없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히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또 자리를 뜨게 되고, 위치가 바뀐다. 촛대가 옮겨진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아니 되나니, 예정은 없나니 자기 행위대로 모든 것의 예정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함을 받게 해 주시고, 목숨을 걸고 긴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를 사랑해서 행하는 행위들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고서는 너희가 행치 못하리니,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내 성령의 역사를 다시 행하리니,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말씀은 충만히 받았으니,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집회를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할지어다. 병든 자도, 아픈 자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치유함을 만나니,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이 시대>는 ‘성령 역사의 시대’다. 왜? <이 시대>는 신부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성령님>도 ‘신부’에 속해 있고, <땅에 있는 자들>도 신부에 속해 있으니, 성령님께서서는 시대를 위해 ‘성령의 역사’를 해 오셨다.
2. 크게 나누면 <구약>은 ‘성부 시대’이고, <신약>은 ‘성자 시대’이고, <성약>은 ‘성령 시대’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 시대 때 ‘사랑의 역사, 휴거 역사’가 진행되고, 이에 해당되는 역사를 성령께서 담당하시고 진행하신다.
3.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은 ‘신부로서 해야 될 일들’이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신부’이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신부’이고, <말씀>도 ‘신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준다.
4. <구약>은 ‘율법 시대’다. <신약>은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다. <성약>은 ‘신부 시대, 성령 시대’다.

5.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신부 역사, 성령 역사’라고 한다. 고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늘 성령을 가까이하고, 성령을 찾고 불러야 된다.” 하셨다.

6. <이 시대 보낸 메시아>도 ‘하나의 성령’과 같다.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다. 고로 그가 오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신부가 되는 말씀’을 전해 주고 하나하나 가르쳐 준다.

7. <성령의 역사 위에 주의 말씀>이다.

8. <성령님>은 ‘절대자 하나님의 신부’로서 땅에 있는 신부들이 능히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가르쳐 주신다. 고로 이 시대에 행하는 일들은 거의 ‘성령의 역사’에 속한다. 고로 <운동할 때>도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코치해 주신다.

9.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된다.

10.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말씀, 더 이상 없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 2000년을 기다려 왔다. <과거의 역사>에서는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말씀’을 하려고 왔다.

11.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하는 말씀>은 ‘신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나님의 신부, 메시아의 신부’가 된다. 고로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땅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너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상징체>에게 물어보아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도, 주께도 나아간다. 모르면 못 한다.” 하셨다.

12. 성령님은 직접 그 영체가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 특별한 때는 말씀하신다. 그러나 많은 역사를 해 나가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쓰고 말씀하신다. <성령의 육, 성령 역사를 위해 조건을 세운 자, 시대에 조건을 세운 자>를 쓰고 말씀하신다.

13. <절대자 하나님의 신부, 성령>께서 와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시대 신부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14. <성령>은 ‘깨끗한 존재자, 성결의 존재자, 미(美)의 존재자, 사랑의 존재자, 온전한 존재자, 의로운 존재자, 영의 존재자’이다. 또한 ‘신령한 존재자, 순결의 존재자, 부드러운 존재자’이다.

15. 누구든지 ‘성령의 행하심’을 다 겪었다. <말씀할 때>도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며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생중계 해 주었고, <운동할 때>도 뛰고 날면서 ‘성령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뛰고 날면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16. <성령>이 함께하면, ‘낙(樂)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흥분의 역사’가 일어난다.

17.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육신을 가진 자’를 쓰고 하시는데, 이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다.

18. <이 시대>는 ‘성령 역사의 시대’다. 고로 6000년 만에 ‘숨겼던 성령’에 대해 밝혔다.

19.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복직하는 데 6000년이 걸렸다. 복직했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는 것이다. <구약 때>는 ‘종급, 성장기’와 같고, <신약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펴는 ‘중간 단계’로서 ‘자녀권 장성기’와

같고, <성약 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비로소 이루는 ‘신부급 완성기’와 같다. <아담과 하와로 이루려고 했던 사랑의 뜻>을 ‘한 바퀴 돌아서’ 이제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축소시켜서 일주일의 <요일>로 보면, ‘일요일’에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일요일이 왔을 때 하는 것과 같다. <하루>는 ‘1000년’과 같다. 고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가 ‘4000년 구약역사’와 같고, <금요일, 토요일>까지가 ‘2000년 신약역사’와 같다. 지금은 <일요일과 같은 때>다.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듯이, <동시성 역사>로 한 바퀴를 돌고 ‘시대 에덴동산에 시대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다. 동시성 역사로 진행하되, 하나님은 차원을 높여 역사하신다.<에덴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난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제2의 에덴동산>은 ‘제2의 아담, 메시아 예수님이 난 베들레헴 지역’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녀급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일요일 같은 때>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제3의 아담’을 보내시어 그를 통해 ‘신부급 역사’를하신다. <그가 태어난 곳>이 곧 ‘시대 에덴동산’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시대 하와’를 세우셨다. 사탄이 간교하니,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님을 숨겼듯이 땅의 하와도 숨기셨다.

20. <역사>가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나타났던 일요일과 같은 때’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때 이루려고 했던 사랑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21. <하루>를 ‘천 년’으로 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4000년 구약역사’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2000년 신약역사’다. <일요일>은 ‘1000년 성약역사’다. 이때 <시대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또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최고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고, 공적 역사 40년을 폈다.

22. <시계>가 돌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아담과 하와 이후 한 바퀴를 돌아 다시 때가 오니, 하나님은 ‘시대 에덴동산’에 아담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아담과 하와로 이루려고 했던 사랑의 뜻, 창조 목적의 뜻’을 정녕코 이루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시계’같이 정확하다.

23.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에덴동산’이다.

24. <구약의 아담>도 ‘그 시대 메시아’다. 타락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시어 그에게 말씀을 주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다.

25. 지금은 ‘일요일’과 같은 때로서, ‘일요일을 확대시킨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요일>은 ‘쉬는 기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휴거, 휴일’이다. <휴거>를 이루면, 쉬는 것이다. <신부>가 그동안 성장하고 결혼해서 신랑 집에 왔으면, 그다음부터는 신랑과 사랑하면서 쉬는 것과 같다.

26. <사랑>을 ‘노동’으로 보면 안 된다. <결혼하기 전>은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기간’과 같다. 그런데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은 ‘일을 하는 기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와 같이 놀러 다니고 사랑하면서 쉬는 기간’과 같다. 휴거를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사랑하며 사는 기간이다.

27. 가령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이 고달픈 생활이 언제 끝나지?” 하면 ‘이혼’밖에 없다. 사랑을 ‘노동’으로 생각하면, 결국 이혼하고 끝나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도 그러하다. 휴거를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사랑하며 사는데 “이 생활이 언제 끝나지?” 하면, 삼위와도 이혼하고 끝난다는 것이다. 고로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사랑하며 생활하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삼위와 주와 사랑하는 일’로 생각해야 된다.

28.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신부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고로 <종들>에게도 해당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안 된다. <시대>를 깨닫고 바로 알고 가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말씀을 해 주신 성령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줬으니,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겨울이 돼서 최고 추운 날씨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행하고, 너희들의 개인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뛰고 달려라. 인생 겨울이라는 것은 나이 겨울도 있고, 늙어 가는 겨울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추운 시대와 같은 겨울도 있다.”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시대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창고에 가득히 넣어 놓고 사는 농부와 같이, 우리들도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신령한 집을 짓고 집 없는 천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셨고, 휴거되어서 휴거의 길을 가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신부의 왕 중의 왕, 하늘의 신령한 전능자 성령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땅의 신부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의 상징체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들이 하여야 더욱 온전하게 변화되고 알게 되오니, 이런 일에 하나님, 성령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이 되고, 에덴의 동산, 시대의 동산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한 자 모두 하는 일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이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나, 성령이 친히 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왕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세상 모두가 다 우리 편이 되어서 행해 주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성령의 존재, 형상, 모양>을 알고 그 행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 것도 알고, 가치도 알고, 같이 대화도 하게 된다.
2. 알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하심도 다르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도 온전하지 못하다.
3. <온전>은 ‘자체적 온전’도 있지만 ‘상대로부터 오는 온전’이 있다. 마치 가정에서 남자 혼자, 혹은 여자 혼자 온전한 것이 있고, ‘부부 일체’로서 온전한 것이 있는 것과 같다.
4. <온전>은 ‘자체적 온전’보다 ‘주체와 상대, 둘 다 온전한 것’이 훨씬 크다. 고로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는 온전하다고 해도 ‘상대로부터 오는 온전’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5. <구약과 신약>에서는 ‘성령’에 대해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다.
6.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자기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7. 가령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자가 자기를 도와준다면, 그에 대해 제대로 모르니 그냥 도와주는 것만 받고 좋아하며 살 것이다. 이는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혹은, <여자>인데 ‘남자’로 잘못 알고 대하고, <남자>인데 ‘여자’로 잘못 알고 대하면, 그 생각도 행위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을 “하나의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여성적인 마음이다.” 하고 제대로 모르고 잘못 대하면, 자기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그 생각도 행위도 온전하지 못하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밥을 해 줬는데, 이를 모르고 아버지가 밥을 해 줬다고 하며 아버지에게만 감사하는 격이다. 이 같은 역사가 6000년간 흘러왔다.
8. 선생이 부흥집회를 다닐 때 보면, 성령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람도 남성적인 성품이 있고, 여성적인 성품이 있듯이 하나님도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 여성적인 마음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성령이라고 한다.” 했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 가르칠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중의 하나다. 그리고 성자는 예수님이다.” 하고 가르쳤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성 신, 천모’로서 하나님과 같이 각 위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절대신 성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땅의 성자’다. 성경을 보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다. <하나님>은 ‘가정의 아버지’와 같고, <성령님>은 ‘가정의 어머니’와 같고, <성자>는 ‘가정의 자녀’와 같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듯이 하늘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신다. 이렇게 따져야 정확하다. <정확하게 아는 자>가 ‘메시아’다.
9.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가령 글씨를 쓰는데, ‘하나’가 틀리면 다른 글자가 된다. <명>자를 쓰는데, ‘ㅇ’을 안 쓰면 <며>자가 된다. 고로 틀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 때도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육’이 살아서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있던 제자들은 ‘육’으로 보지 않았다. <육>이 아니라 ‘영’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육>으로 알았으나, 나중에는 ‘영’인 것을 확실히 알았다.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육>이라고 한 말씀이 없다.

10. 성경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니, 기독교에서는 <육>이 죽었으니 <육>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 <살아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 <육>은 한 번 죽으면 살아나지를 않는다.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두고 “살아났다.” 한 것이다.

11. <영>은 천 번도 죽었다 살아난다. 왜? 죄를 지으면 ‘사망권’에서 영이 죽고, 회개하면 다시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한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완전히 죽지 않고 설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선생도 보름 동안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렸는데, 그 역시도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식물인간같이 숨만 간간히 쉬고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생명을 살려 달라고 기도하니, 현장에서 눈을 뜨고 움직이면서 살아났다. 그리고 한번은 겨울철에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다 죽은 지 8~10시간 정도 된 사람을 봤다. 그를 싣고 오는데 손을 대 보니 따뜻했다. 맥박은 거의 뛰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해 보자고 하고 기도하는데, 그 후 3시간 만에 살아났다. 그리고 또 한번은 선생이 이탈리아에 있을 때다. 그때 선생에게 연락이 오기를, 선생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전날 초저녁부터 이튿날 아침 8시까지 일어나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리고 발도, 손도, 몸도 다 차갑다고 했다. 고로 초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기에, 하지 말고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한 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어머니 얼굴도 못 봤는데 그냥 가시면 마음이 안 좋다고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했다.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정도의 부활은 시켰지만, ‘한 달 전에 죽은 자, 두 달 전에 죽은 자, 구약 때 죽은 자’를 부활시킨 일은 없다.

12. <예수님의 부활>도 ‘육신 부활’이 아니다. 육신이 부활돼서 말씀하고 다니신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주>는 그 시대에 안 살았어도 확실히 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는 깊은 영계의 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 책 서른세 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읽었기에 알고, 모든 이치와 지혜의 판단으로 아는 것이다.

13.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린다. 이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서 끝났다. 모르니까 지금까지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14. 예수님의 영이 승천할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 곧 가브리엘과 미가엘 두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했다. 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를 보고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했다. 여기서 ‘본 그대로’라는 말은 “이미 봤다.” 하는 과거사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같이 그와 같이 메시아가 또 온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실 때 ‘영’으로 가는 것을 봤으면 본 그대로 ‘영’으로 온다는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땅의 육 있는 자, 예수님>을 쓰고 역사하셨듯이 그와 같이 다시 오실 때도 ‘땅의 육 있는 자’를 쓰고 오신다.

15. 모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았어도 약하고, 금방 꺼진다.

16. <성령>을 확실히 알고 대해야 된다.

17. 구약과 신약 때는 ‘성령 역사’를 해도 ‘성령’이 누군지 몰랐다. 가령 <한 남자>가 있는데 자기 애인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챙겨 주고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자. 고로 그 여자는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려주지 않고 챙겨 주고 도왔다. <따르는 자들>이 누가 자신들을 돕고 있는지 물으면, “너희가 믿고 따르는 자와 한 몸이다.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자다.”라고만 했다. 이같이 구약과 신약 때는 성령에 대해 몰랐다. <성약 때>는 하나님이 그 보낸 메시아를 통해 성령에 대해 밝히고, 성령의 모양과 형상에 대해 밝혔다. 그리고 <성자>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메시아와 함께 역사해 주고 계신다.

18.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는 시대’다.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령을 직접 나타낼 수가 없었다. <신부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긴긴 6000년 역사 동안 성령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마지막 역사에서 메시아에게 ‘성령의 모양과 형상’을 정확하게 보이시고 가르치게 하셨다.

19. <성령>은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땅의 신부’를 만들고 가르치려고 나타나셨다. 고로 <성령>은 주를 통해 ‘신부로

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한 '신부로서 땅에 보낸 메시아를 어떻게 믿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 <하늘의 신랑>과 <땅의 신랑>에 대해서다.

20. 하나님은 창조 목적대로 <최고 목적, 휴거>를 이뤄서 '신부의 영으로 변화된 자들'이 황금성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땅에서도 '보낸 자, 메시아'를 쓰고 땅의 신부들의 섬김과 사랑의 영광을 받으시며 신부들이 육신 일생 동안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21. 성령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바로 보고 알았으니, 네가 가르쳐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자들은 모른다. 고로 계속 가르치자. 같이 장구를 치자." 하셨다.<장구를 칠 때>는 양쪽에서 같이 쳐야 멋있게 소리가 난다. 이와 같이 <주>가 성령에 대해 가르치고 밝힐 때, <주>만 나타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나타나서 보여 주시면서 같이 하신다는 말이다.

22. <성령>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된다.

23. <성령>을 알아야 대화를 한다.

24. <성령>에 대해 모르면, 하늘 앞에 그 대화가 상달되지 않는다. 고로 알고 성령과 대화하여라.

25.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신다. 고로 <땅의 신부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신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다 가르쳐 주신다. 마치 <임금>에 대해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왕비'인 것과 같다.

26. <성령>은 '성결의 신'이다. 고로 더러우면 쫓겨난다. 깨끗해야 된다.

27. <성령>에 대해 배워서 알았는데 제대로 못 하면 큰일 난다.

28. 가르쳤으면, 그만큼 행해야 된다.

29.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을 밝혔는데 못하면, '신부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다.

30. <사랑을 했을 때>와 <사랑을 안 했을 때>는 다르다. 사랑을 안 했을 때는 보통으로 대하지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변하면 바로 끝나고 '사망권'으로 가 버린다. 이같이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에 대해 알고 사랑해서 신부가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다는 것이다. 고로 <성령>을 받고서 성령을 거스르면, 큰일 난다. <성령>을 배신하면 '사탄이 쓰는 자'가 되어 버린다.

31.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과 대화하고 통해야 된다. 성령을 멀리하면, 그때는 냉정하게 변신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성부, 성자, 성령님, 이제는 하늘의 성부, 성자도 알고, 땅의 성부, 성자도 알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더해 주시옵소서. 그릇이 완전해야 완전한 것을 넣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을 보아라. 집도 좋은 집에서부터 못한 집까지 수십, 수백 가지로 있지 않느냐. 신앙도 그러하고, 믿는 것도 그러하고, 행실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 줬는데, 한이 없죠. 끝이 없죠. 계속 이 주일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성령의 모양도 알고, 성령의 모든 마음도 알고, 성령의 형상도 알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성령이 한 존재체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늘 부모가 이야기할 때 "부부 일체다. 저 집의 누구 결혼했다, 이제 부부 일체 돼서 산다." 하시면, '아 윗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는구나.' 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덩어리 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보니까 각각 돌아다니서 어머니한테 각각 돌아다닌다고 했더니만, "그것이 부부 일체다. 마음이 하나 되고, 일도 같이 하고, 그것이 부부 일체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부부 일체 되어도 하나가 아니고 한 덩어리가 아니고 두 사람이 각각 있듯이, 성부, 성자, 성신은 일체이면서도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를 깨닫고 알았으니 그렇게 대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아오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를 이루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과 나 성령이 어디까지 돕고 역사를 하는지 다 아는 자도 없고, 그 뜻을 다 아는 자도 없다. 왜? 사람이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부분적으로 안다.
2.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100%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100% 깨닫지 못한다.
3. <성령>이 ‘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100% 믿으면, 100% 아는 것이다.
4. 하루 종일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도우신 것을 다 아는 자가 없다. <주>를 통해 말씀할 때, 그 순간만 안다.
5. <하나님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왜? <신의 역사>는 수만 가지로 하시기 때문이다.
6.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나, ‘인간’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가 없다.
7. 100개가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중에 95%를 돕고 역사하신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 마치 겨울철에 식물을 기르는데 절대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죽는 것과 같다. 물을 안 줬든지, 온도가 안 맞았든지 ‘한 가지’만 빠져도 죽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절대적으로 생명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다.
8. 선생이 월남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하지마라.” 혹은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셔서 살았다. 30번은 꼭 죽을 것인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하시어 안 죽었다.
9.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95% 이상 도와주고 함께해 준다. 5%는 자기가 숨을 쉬는 정도다. 그러다 성장할수록 자기가 거의 다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이 성장했을 때도 95% 이상 돕고 함께해 주신다. 인간은 그 터전 위에서 행한다.
10. <새벽예배>에 나온 자들 중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 역시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감동을 시키시고, 깨워 주시고, 행할 수 있게 도우신 것이다.
11. <성령의 역사, 신의 역사>다. 사람이 ‘성령’과 일체 되지 않고서는 성령이 도와주셔도, 역사해 주셔도 모른다.
12. 성령집회 때는 뜨겁게 성령 역사를 하니,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느끼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하고 안다. 그런데 평소 때는 ‘성령 역사’를 잘 못 느낀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성령 역사’를 하는지 배우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깨달으려고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감동도 받고 행해야 된다.
13. 가령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면, 그 그릇은 설거지가 안 된 채로 그대로 있다. 이같이 성령도 가르쳐 줬는데 연구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두는 것’과 같아서 성령과 통하지를 않는다.
14.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연구하고, 알려고 노력하고, 물어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15.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은 더 역사하신다. 왜? 자신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 뜻은 ‘영원한 뜻’이다.

16. 성령의 뜻대로 행할 때 성령이 더 역사하시는 고로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깨닫고 알게 된다.

17. <성령>에 대해 모르면 안 된다. 모르니, 자기 주관대로 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18. <뇌>는 생각한 대로 결정된다. 고로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혹은 <사탄과 귀신이 행하는 노련한 역사>를 두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그러했다.

19. 만일 어떤 일을 놓고 할 수 있게 하나님과 성령님이 여건을 틀어주시면, 그것이 자기가 과거에 기도했던 것임을 깨닫고 알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

20. <성령>이 역사를 하셔도, 사람처럼 귀에 들리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알기가 어렵다.

21. <성령>은 ‘말’로 하지 않고 ‘감동 자체’가 ‘말’이니라. 그리고 <만물>을 보여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하실 때 더욱 확실성이 있다. <꿈>으로도 계시하여 깨닫게 하신다.

22. 기도하고 성령과 대화하며 현실을 보고 깨닫기다.

23.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마음>을 배워라.

24. <성령>이 역사하셔도 전혀 모르고 사는 자가 너무 많다.

25. <성령 역사>에 대해 막연히 알고 사는 자가 많다.

26. 저마다 성령께서 늘 도우시는 것을 배워라. 깨달아라.

27. <성령>에 대해 배우고 알았으니, 성령과 일체 되어 부지런히 행하여라.

28. <성령>에 대해 신경 쓰고, 알고, 대하는 만큼 성령은 더 도우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뇌, 인간이 잘 모르는 뇌의 한 부분을 자극하며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감동을 시켜 본인이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는 신비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큰 차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모터의 스위치를 눌러야 발동이 걸려서 돌아가는데, 방향은 운전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 인간들의 뇌신경에 한 장치를 해 뒀서 그것을 누르고 감동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행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인지 너희는 알아라. 네 생각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을 너희 생각에 주었노라.” 성령은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고 부르고 의논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성령과 의논하고 말하라. 성령께 왜 안 말기고 하느냐. 모든 전체를 성령께 맡겨서 성령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행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리라. 깨닫게 해 주리라.”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자기 혈기 먼저 내지 말고 자기 생각 먼저 하지 말고 성령께 물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계속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며 역사하셔서 이들이 할 일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행하게 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고 찾는 데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더해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신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전도하는 해입니다. 어젯밤에 모든 교역자들 배치를 했는데 특히 전도한 것을 보고 많이 배치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약 200명 교회인데 1년에 1명 통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명. 거기는 두 명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도 못 할 수 있느냐. 300명 교회는 1년이면 30명 정도는 전도가 돼야 한다. 그것이 최하다.” 했습니다. 선교 실적이 부족하거나 교회 운영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목회하는 것이 아니다. 섭리사에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다. 왜? 설교를 100% 해 주는 자가 목회를 하는 자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100% 하는 자, 그가 목회를 하는 자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목회를 돕고 관리를 하는 자들이다. 교역자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모두 그러함을 알고 모두 깨닫게 행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알고 주의 생각을 알고 깨닫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해 주 시옵소서. 빙판 위에 해뎀이 상함이 없도록 늘 정신 차리고 운전하고, 갈 길을 꼭 성령께 물어보고 가게 해 주시고, 가더라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과 동행하면 사고가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성령님>은 ‘천모’이시고 ‘여성 신’이시지만, 여자가 할 일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남자가 할 일도 가르쳐 주신다.
2. 성령님은 ‘여성 신’이시지만, ‘여자에 대한 말씀’만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도 가르쳐 주신다. 고로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며 명령도 하신다. 그리고 감동을 주시어 행하게 하신다. 행치 않으면, 성령을 거역한 것이 되어 성령께서 직접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주신다.
3.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세밀한 것’까지 말씀해 주신다.
4. <성령님>은 ‘성령의 말씀을 들은 자, 그 행하심을 본 자의 입’을 통해 거침없이 말씀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며 지적도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무섭게 칼날같이 생각을 안 한다. 고로 그때만 조금 깨닫다가 만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거스르지 못하게 나 성령이 직접 말씀을 하노라.” 하셨다.
5. <성령님>은 ‘지도자들이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 특히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끄는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섭리사 신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엄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
6. 특히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잘해야 된다. 철저히 계획하고, 분석하고, 노력하고 서로 하나 돼서 뛰어야 된다. 모순이 있어서 본인을 통해 깨우쳐 줬는데도 모르고 계속 하면, 그때는 교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다.
7. <성령>이 ‘교인들’을 통해 말씀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주’를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8. <자기>를 위한 기도를 전적으로 할 때, 자기 모순을 깨우쳐 주신다.
9. <정상>에서 벗어나면, ‘건강’도 이상이 생긴다.
10. <신앙>도 ‘정상’에서 벗어나면, 병에 걸린다. 고장이 난 것이다.
11. 지금은 <주>가 설교하는 고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지 않으니, ‘생각,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
12. 전에는 <목회자들>이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를 하느라 설교에 매여 정말 바빴다. 그때는 금식도 하고, 산에 기도하러 다니고, 제스처 연습을 하고, 목소리 연습을 하느라 바빠서 밥을 해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하며 편지가 많이 왔다. 그러니 교인들을 시켜서 먹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을 못 가니 교인들이 대신 시장을 봐다가 냉장고에 채워 놓기도 하고, 일주일 치를 사다 채워놓기도 했다. 그때는 목회자가 바쁘니 그리 해 주라고 하면서 목회자들이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 그때는 목회자들이 바쁘니 3명, 4명, 5명씩 시중드는 자를 두고 자기를 돕게 했다. 고로 ‘조은 목사’는 말은 교회가 크니, 옆에 시중드는 자가 많겠다.’ 하고 가서 보니, 시중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선생이 철저히 가르친 대로였다. 지금은 <주>가 설교를 다 하니, 예전처럼 누가 밥을 안 해 줘도 되고, 대신 냉장고를 채워 주지 않아도 된다. 목회자들 중에 이 선(線)을 넘은 자들이 있으면, 오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라.
13. <홀로 서기>다. <하나님과 서기>, <성령님과 서기>, <주와 서기>다. 지금은 때가 때이니 만큼, 이와 같이 해 나가야 된다.
14. <목회자들>은 본인이 부지런히 뛰고 달려야 된다.

15. 선생도 수종자를 두지 않는다. 10년 동안 모든 것을 혼자 했기 때문에 지금도 혼자 한다.

16. 가령 배구할 때 볼이 오면, 혼자 볼을 때려야지 두 명이 볼을 때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종자를 두지 말고 혼자 하는 것이다.

17. <전도한 자>에게 심부름시키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자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다.

1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시종을 드는 자가 아니면, 휴거가 안 된다.

19. <하나님 시종>, <성령님 시종>, <주님 시종>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시종들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시고, 주를 우리러 쳐다보면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도 없이 홀로서기 확실히 할 것이고, 신부로서 단장을 완전히 할 것이니,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철통같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남은바 17일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 알았사오니 이제 칼날같이 쏘아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여라. 그래야 마지막 손질을 해서 너희가 부활된 완성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제 40년 역사를 채우는데, 끝에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꺼림 없이 자기를 완성하며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원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성령>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르다.

2. <성령>은 ‘성경에 인봉된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3. <주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받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이런 일, 저런 일 문제가 일어난다. ◎ 오늘은 특히 교역자들과 지도자들, 전도자들, 관리자들을 두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4. <전도자>는 ‘중매자’다. 전도를 했으면, 바로 교역자에게 맡기고, 강사들에게 맡겨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맡겼는데, 교역자가 바쁘다며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섭리사 정신 병원’에 가야 된다. 곧, <주>께 가야 된다. 귀한 생명을 전도했는데 바쁘다고 미루며 빨리 가르치지 않으니,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을 책망하시며 “이런 자들이 교역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셨다.

5. 생명을 전도해서 연결했으면, 귀히 여기고 가르쳐서 빨리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넘어오게 해야 된다. <생명권>으로 안 넘어오면, 사탄들이 바로 데리고 간다. 서둘러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넘어오게 해야 된다.

6. <생명>을 전도해 놓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 자기 주관을 넣고, 자기 생각을 가르친다. 성령께서는 이런 자들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셨다.

7.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성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이성에 대해 가르친다. 그러니 <주>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수준으로는 생명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성령>이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깊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8. 잘못 가르쳐서 <주>도 이상하게 보고, <시대 역사>도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생명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계속 그리하는 자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9. 전도해 놓고 자기 사람으로 삼으니 성령님은 이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커야 될 사람을 전도자가 저렇게 만들어 버렸다. <전도자>는 씨만 뿌리면 된다. 그리고 <가꾸는 자>는 가꾸기만 하면 된다. <추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추수하는 자’가 한다.” 하셨다.

10.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면 안 된다. <메시아>가 전도한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생명 탄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들을 ‘이 시대’로 부르셨다.

11. 전도를 했으면, 빨리 교역자나 강사들에게 연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니 1년씩 생명을 그냥 붙잡고만 있다. 고로 전도가 안 된다. 월명동도 보면, <나무를 사오는 사람>은 나무만 사다 주고 간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사람>은 나무를 심고, <방향을 잡아 주는 사람>은 방향을 잡아주고, <전지를 하는 사람>은 전지를 한다. 이같이 각각 할 일이 있다. <돌을 쌓을 때>도 ‘돌을 싣고 오는 사람, 돌을 쌓는 사람,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각각 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이같이 해야 된다. <전도자들>도 전도를 했으면, 그다음에 교역자나 강사들에게 빨리 연결하라는 것이다.

12. <전도자>는 생명을 전도했으면, ‘세례 요한’에게 연결해야 된다. 왜? 증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증거를 해 줘서 그 생명들이 ‘주’께로 오게 된다. <주>께 오면, 주가 가르치고 인정해서 하나님께 올린다. <세례 요한>은 ‘시대를 증거하고,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다.

13. 자기가 생명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은 <생명을 떼먹는 자, 생명을 취하는 자>다.

14. <주>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주>가 세상에 나타나서 그가 ‘머리’가 되어 지체들을 쓰고 전도한 것이다.

15. <전도자들>은 생명을 전도했으면, 반드시 ‘주’께 맡겨야 된다. 그래야 생명들을 사탄에게 안 뺏긴다.

16. <전도자들>이 자기가 ‘생명의 감독’이 되어서 생활까지 총 관리를 한다. 어릴 때는 관리해 주면 좋은데, 성장했는데도 그같이 하면 안 맞는다. <전도자들>은 빨리 다시 씨를 뿌리며 다녀야 하는데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필요 없는 시간을 투자하니, 전도가 안 된다. <전도자들>은 전도해서 교역자, 강사들에게 바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는 증거자에게 연결해서 증거를 받게 하고, 성령집회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게 하고, 그리고 주께 인도함을 받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로부터 ‘근본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

17. <생명들>은 저마다 타고난 특기와 재능이 있다. <주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 특기와 재능을 써먹는다.

18. 주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충성하고 열심히 해도 ‘주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못 따라간다. <주께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지 못한 자들 보다 100배, 1000배 높은 위치에 있다.

19. <주>께 생명을 연결하면, <주>는 하나님께 그의 특기를 물어본다. 그리고 바로 축복해 준다. 만일 어떤 생명이 ‘물질 축복을 받을 자’라면, 주가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을 받고 크게 된다. 고로 다른 사람이 따라 올 수가 없다. <주>는 저마다 개성대로 축복을 해 준다. 그런데 <전도자들>은 이와 같은 축복권이 없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다. <주의 손>이 ‘보이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 손이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20.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는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고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크다는 것이다.

21. <자기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22. <주>와 통해야 된다.

23. <성령>이 키우지 않고서는 제대로 ‘신부’가 될 수 없다. <성령>이 ‘신부’를 가장 잘 기르신다. <성령>은 ‘전능자, 절대신’이기 때문이다. 고로 <성령>이 ‘땅에 있는 상징자’를 통해 교육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서 가르치신다.

24. <성령>이 불을 준 것은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뜨겁게 ‘사랑’도 하고, 자기 죄도 모두 회개해 버리고, 성령을 더 알고, 열심히 잘하라고 준 것이다. 이외에도 성령이 불을 주신 이유는 100가지는 더 된다. 성령이 그냥 불을 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을 쬔어도 안 하니, 식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이 식어버리면, 혼자 한다.

25.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심부름하는 데 쓰고, 몸종같이 쓰는 자들이 있으면 모두 회개하여라. 이 죄를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살 수 밖에 없으니 성령은 주를 통해 말씀했다. 눈물이 줄줄 흐르도록 회개하여라.

26. <소출>을 제때 드리지 아니함으로 다 바꿔버린다. <소출>은 ‘생명’이다. <생명들>을 제때 주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바꿔버린다. 고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권’을 주고, 교역자도 다른 사람으로 바꾼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27.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자가 ‘성령’이다. 왜? <성령>은 내적으로 강하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세밀하게 행해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해 병들어 사망으로 가기 때문이다.

28. <성령의 감동>과 <주의 말씀>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성령의 감동과 주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모두 소출을 하나님께 바쳐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소출이 안 왔다. 가 보니까 포도원에서 농사를 지어 자기가 먹고 있었다. 바로 종들을 보내서 멸하고 그 포도원은 소출을 바칠 다른 사람에게 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니 그 포도원을 타인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2의 이스라엘 민족,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도 소출을 제대로 안 바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출을 제대로 안 바치면, 농사지은 것을 자기 유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지 못하면 전도자도 바꾸고 교역자도 바꾸고 다 바꾼다고 했습니다. “소출을 제때 주지 못하더라. 전도하지 못한 자, 전도의 실적이 없는 자들이 그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출을 바치고, 전도의 생명의 소출을 바치고, 또 모든 자들이 주께 향하는 마음들이 일체 되게 하시옵소서. 꿈에 영계를 돌아다녀보면, 자기의 관리자만 쳐다보고 내가 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에는 멀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멀고, 자기 관리자 그에게만 열심히 하고, 그만 열심히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관리자들을 더 크게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탕감 받고 형벌 받고 올라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끄는 자의 책임이 큼니다. 항상 고치고 온전케 되라고 300일 동안 외쳐 쬔습니다. 이들 중에 아직도 그렇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들에게 소출이 안 오니 소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했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되면 다시 맡겨보겠지만, 회개치 않으면 그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되어라. 특히 각 기관의 관리자, 기관의 지도자들, 모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지 말아라. 자기 사상, 자기 생각 가르치지 말아라. 30개론을 가르친다고 자기 것을 다 집어 쳐 넣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것을 가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주께 보내고 하나님께 보내라고 했습니다. 주께 보내야, 늘 그에게는 말씀을 듣고 온전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 하시옵소서. 자기가 가르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들통 나기 때문에 안 보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에게는 주일과 그리고 평소 새벽, 그리고 수요일에 계속 설교권을 안 주고, 내가 외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구나. 나를 관리한 사람이 잘못 관리했구나. 이성의 교육도 잘못 됐구나.’ 하고 깨닫게 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완벽하게 완전히 깨닫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휴거도 되고, 마음 딱 놓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강 해서는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해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성령>을 많이 받고 싶으냐? 그러면 성령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성령과 한 몸 되어 일편단심으로 살아라. 연애할 때 사귀듯이 성령과 사귀어야 된다. 거기에서 사연이 생기고, 거기에서 정이 붙는 것이다.

2. <시대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성령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살아났기에 ‘성령과 일체 된 신부’가 됐다.

3. 잘해 주면 사랑으로 본다. 잘해 주고, 이해도 해 주고, 용서도 해 주고, 도와주고, 혼낼 것도 안 혼내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4. <영>이신 하나님 앞에는 <육신 자체>가 ‘이성’이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5. <사랑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기에 그 나머지는 그냥 통달하게 되었다. 최고의 사랑의 세계, 사랑의 원자폭탄의 세계가 바로 성약역사다. <사랑>이 없으면 성약역사에 도전을 못 한다.
6. <사랑>도 배우고 알고 해야 사랑을 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어 살아 보지 않고는 사랑의 낮은 단계로 본다.
7. <구시대>는 “더는 없다. 더 이상 없는 세계다. 성경의 인봉을 다 떼서 살고 있다.” 한다. 무조건 의롭게 행했으면 천국에 올라간다고 해석한다. 성경의 세계는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대로 차원이 있다. <육적인 자들>은 육적으로만 본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으로 믿었다.
8.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절대 믿는 사람, 절대 사랑하는 사람, 미리 준비된 자를 통해 오신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직접 오시는 것이다.” 하고 해석한다. 성경의 해석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해 버린다. 보낸 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쓰고 하시는 것이다.
9.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여건을 틀어 버리고, 환경을 틀어 버린다.
10. 그때마다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따져야 된다. <예수님>은 와도 ‘신약 주관권’이다. <새 시대, 성약역사>는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역사다. <하나님 주관권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시대의 주관권’에 가서 사는 자들만 안다.
11. <성약>은 그중에서 뽑고 뽑은 자, 사랑의 대상체를 통해 역사를 편다. <사랑하는 자>에게 안 기울 수가 없다. <사랑의 세계>다.
12. 알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모르고 믿은 대로 그냥 역사를 해 버리지 않았냐.
13. 주가 성령체가 되어서, 보이는 성령이 되어서 말씀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순간에 수만 가지를 깨달아 버린다.
14. <성령>을 ‘자기 성령’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나 개인은 복 있는 자들이노라.
15. <하나님>을 분석해 보면 ‘말씀체,’ <성령>을 분석해 보면 ‘사랑체’다. <주>는 ‘말씀체’다. <시대 신부들>은 ‘시대 하와’를 중심해서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16. <새로운 역사>는 구시대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룰 수가 없다. <구시대 말씀>으로는 ‘휴거’도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휴거다.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다.
17.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본인이 깨닫고 알면, 깨달은 것 자체가 지혜가 된 것이다.
18.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아도, 성령이 원하는 ‘행실’을 하면 그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19. <성령>에는 ‘기쁨의 성령’이 있다. 또, ‘깨닫게 하는 성령’이 있다. <성령>은 여러 가지로 역사 하시면서 다양하게, 재미있게 성령의 역사를 해 오셨다.
20.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이 계획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 후에 사연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구상으로 하나님과 성령이 밀어붙이고 하셨구나!’ 하고 알게 된다.

21. <성령>은 주의 시종을 들러 왔다. 하나님이 주를 쓰고 행하시니, 땅에서 그의 시종을 들어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다.
22. 네가 성령을 떠나지 않으면 성령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23. (성령님)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성서에 있는 말씀같이, 네가 행한 대로 나도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다.
24. <성령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 잊지 않으려면 ‘사랑’을 해야 된다. <성령>이 자기 사랑하는 남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도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25. <성령>과 그때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대화하여라. 그리하면 성령이 내가 할 일을 구상해 주시고, 네 몸을 쓰고 계속 행하신다.
26. 가령 <새들>과 같이 살려면, 새소리를 내며 새와 같이 장단을 맞추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상대와 같이 살아 줘야 같이 사는 것이지, 같이 안 살고는 같이 안 살아지는 것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다.
27. <성령>을 사랑하지 않고, 일체 되어 살지 않고서는 그 어떤 자라도 기쁨과 이상의 세계를 이루며 살 수가 없다.
28. <휴거된 자>는 ‘성령님과 말씀’을 사랑하며 산다. 고로 <성령>으로 배우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도 <주>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게 된다.
29. <성령>이 깊은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신혼골수를 쪼개어 보시며 깨닫게 해 주시니, 이를 깨닫고 알아라.
30. <성령>은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사는 절대적인 존재자, 사랑의 핵심자, 전지전능하고 아름다운 여신’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최고로 잘 알고 행하신다. 고로 그 신과 일체 되어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대상이 될 수 있다.
31. 휴거 후 성자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근본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성령님은 ‘절대신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 ◎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곧 한 마디로 신부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신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땅의 신랑인 하나님이 육신 쓰고 난 자를 대하며, 성령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더하사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사는 자들이 되도록, 온 지구상의 섭리사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그 하루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에 의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구상에 따라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 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고, 하루를 거두어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루를 뿌리고 내일은 거두어들이는 하루가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하며, 지혜로, 지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오늘도 축복함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상대로 오늘도 그 노선을 뛰고 달리게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들은 말씀하면서 낫게도 해 주시고, 성령집회로 계속 낫게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성령께서 스치고 지나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으나, 이제는 알게 하고 성령을 모시고 섬기고 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도 충만할지이다. 이 흰돌교회를 중심한 온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온 세상의 천 년 역사를 가지고 가는 이 역사가 되게 각 나라에 역사하시고, 각 교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활 가운데 삼위를 모시고 섬기고 좋아하며 사는 삶이 영영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섭리역사 40년의 사연들>을 보아라. <하나님의 지난날>을 기억하여라. 잊지 말아라.

2. <지난날 섭리역사 40년>은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였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많고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으니 기쁨도 보람도 많았다.

3.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파도가 드높을수록, 섭리사에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수록, 하나님과 성자는 더욱 우리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더욱 굳건하여라. 담대하여라. 내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 당할 것은 당하고, 얻을 것은 얻는 것이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여라.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성서를 통해서 보고 차분하게 하자.” 하셨다. 그리함으로 어려움을 담대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날그날 할 일들을 하게 하시며 구원할 자들을 이끌어 오셨다. 시대 하나님이 택한 생명들을 안 뺏기는 일이 목적이니, 그것을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다.

4. 어느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서 갈 곳이 없으니, 홀로 울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다. 선생이 독일에 있을 때 한번은 보고가 오기를, <섭리사를 악평하는 자들>이 섭리사를 막으려고 계획적으로 행하니, 이를 두고 꼭 기도를 해 달라고 했다. 그날은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날이었지만 어디에 있어도 마음이 편치를 앓았다. 게다가 그날 눈까지 와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었다. 고로 실 가닥 같은 길마져 막혀서 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밤을 새워 기도했다. 기도하고 새벽에 보니, 마룻바닥에 엄지손가락만 한 큰 벌들이 나를 쏘려고 기어 오고 있었다. 벌들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쏘니, 구둣발로 그 벌들을 계속 죽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구둣발>은 ‘말씀’, 그리고 <큰 벌들>은 ‘인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고로 하나님께 고하기를, ‘복음의 신발’로 이같이 인사탄들을 멸해 달라고 했다. 기도하고서 후에 전화가 오기를, 섭리사를 계획적으로 막으려고 했던 자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직위를 버리고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다고 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억울하게 해 버린 것이다.

5. <전쟁 났을 때>도 그 상황을 전방의 군인들이나 세밀히 알지, 국민들은 직접 겪지 않으니 다 모른다. 이같이 <섭리사>도 그러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이 되는 사건들이 차고 넘쳤다. <직접 겪은 자들>만 현실에서 부딪히며 눈물겨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나님은 최고 극적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펴 오시면서 결국 이기게 하셨다.

6.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보면, 하나님과 주가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주를 사랑하며 살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으로 나가 버렸다.

7. 지난날 애굽 같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끌어 내신 것을 생각하며, 이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모르면, 가치를 상실하고 보람도 없고, 결국 힘들어서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된다.

8. <섭리사를 나간 자들> 중에는 섭리사 안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다 나간 자들도 있다. <자기와 같이 일하는 자>를 책망하고 말의 채찍질을 하니, 이를 못 견디고 힘들다고 나간 것이다.

9. <바깥에 있는 적들>도 문제이지만, ‘안에 있는 적들’이 문제다. <서로 싸우고 화평하지 못한 일들>이 결국 ‘무서운 적’이 되어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도 그러하다. <바깥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내부>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다.

10. <섭리사를 나가서 악평하는 자들>도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다.

11. 늘 화평하고, 사랑을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12. 하나님을 제대로 100% 안 믿으면 ‘믿음의 병’이 들고, 말씀을 들었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행실의 병’이 든다. 그리고 마음을 제대로 못 먹고 생각을 제대로 못 하면,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든다.

13. 항상 보면, ‘자기 문제’다. <자기 잘못>으로 ‘지옥’에도 가고, 자기가 생각을 잘해서 ‘천국’에도 간다. 이를 깨닫고

‘자기 병’을 발견하여라. <영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꼭 발견해야 된다.

14. <신앙적>으로 더러우면 ‘신앙의 병’이 오고, <육적>으로 더러우면 ‘육적인 병’이 온다.

15. <신부들>은 항상 깨끗해야 된다. <신부들>은 ‘깨끗한 것’이 권세이며, 복이며, 능력이다.

16. 많은 것을 겪고, 닦을 것을 닦으며, 최고 극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휴거’를 알았다. <시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휴거 역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망연하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결국 2009년부터 3년 동안은 시대 십자가를 저 주면서 시대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고, 2012년도부터 3년 동안은 섭리사 자체에서 할 일들을 하며 회개하게 하고, 신부로서 깨끗하게 했다. 이때는 <신부로서 깨끗하게 만드는 기간>이었다. 그러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가 휴거 3일 전에 “성자가 승천한다.”라고 가르쳐 줬다. <승천> 하면, ‘휴거’인데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부활절 행사 때 다시금 알고 모두 모여서 ‘휴거 역사’를 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도적같이 오셔서 할 일을 다 해 주셨다.

17. 하나님은 <시대 메시아가 태어난 날, 그를 보낸 날>을 ‘성자가 가는 날’로 삼으셨다. 성경에 “도적같이 오리라.” 한 그날이었다. 미리 알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 은밀히 돌려서 “승천한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다.

18. <휴거 날>은 ‘결혼해서 사랑하는 날’과 같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하나님은 결국 맨 마지막에 ‘최고 하나님의 뜻, 창조 목적’을 ‘휴거’로 이루셨다. 그리고 <최고 이상적인 세계, 황금 천국>을 주셨다.

19. 가령 비싼 것을 줄 때는 요리조리 뚝을 들이고, 보통으로 조건을 세워서는 주지를 않는다. <성자가 준 것들>은 너무 비싸서 말을 못 한다. 영계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생각을 해 보아라. 가치를 결정해 보자. 6000년 역사가 끝나고 성자가 기념으로 줬으니, 그것이 얼마나 비싸겠느냐. 나 여호와와 성자, 성령이 지구촌에 ‘딱 하나’ 준 기념물이다. 10억, 100억, 1000억, 1조, 2조로 결정되겠느냐? 이는 값을 따질 수 없다. 고로 귀하게 여겨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마지막 6000년 역사를 하시고 ‘휴거 역사를 이룬 신부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다.

20. 2015년 3월 16일, 휴거 이후 3년이 되는 때인 2018년, 곧 섭리역사 40주년이 되는 이때까지가 <결혼해서 1차로 사는 기간>이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아 기르듯이, 이때는 휴거 이후 생명을 낳아 기르는 기간이다. <가장 사랑이 불타는 기간>이 바로 이때다.

21. <전도>는 ‘하는 사람’만 그 낙을 누린다.

22. <전도하는 것>은 마치 ‘금을 캐는 것’과 같고,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과 같다.

23. 지난 10년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2009년부터 3년 기간>은 주가 대신하여 시대 죄를 깨끗이 하려 십자가를 저 주는 기간이었고, <두 번째, 2012년부터 약 3년의 기간>은 시대를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고 신부로 만드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2015년 3월 16일 휴거 이후 3년의 기간>은 ‘결혼해서 같이 사는 기간’으로서, 지금 이때를 보내고 있다.

24. 결혼을 했으면 집을 사서 같이 살아야 되니, <주>는 이를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고로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 허허벌판을 벗어나 ‘멋있는 세계, 가나안 복지’를 만들었듯이, 섭리사도 그러했다. 하나님은 혼인 잔치 시대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거할 집, 성전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셨다.

25. 지난 섭리역사 4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을 생각하며 행하여라. 지난날을 생각하면,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역사였음을 깨닫고, 신부로서 더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섭리사 전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한 시간씩 갑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40년 동안 행한 일들은 그때그때 겪은 자들이 아는데, 그들이 한 주일 동안 서로 간증도 해 주고,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금주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이 잔치 거리입니다. 해 준 것이 은혜 거리입니다. 지난날들은 흔히 잘 잊어버리는데, “잊지 말아야 된다. 잊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잊으면 앞날에 할 것이 또 죽어 버린다 했습니다. 또, 걱정하다 죽어 버린다 했습니다. 지난날같이 도울 테니까, 지난날같이 함께할 것이니까, 지난날보다 더 함께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힘 있게 행하도록 하고, 지난날같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뭉쳐서 또 행해 나갈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또한 특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주님의원동교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어 주셨으니,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 와서 섭리사의 굳건한 주의 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중심한 서울 시내의 모든 각 교회들, 독립문 교회, 명동 교회, 아가페교회, 광명교회, 사파이어교회와 일산 교회와 저 강북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교회들을 잘 관리하고, 신촌의 교회들까지 다들 힘 있게 역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오니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을 중심한 세계의 모든 각 나라들, 일본, 타이완, 그리고 아시아권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유럽권에 있는 나라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해서, 이 나라들이 계속 발전하고 전진하여 많은 생명들로 구름 떼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를 잘 기록해 놓고 후대에 보여 주며 행할 수 있게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할 일을 그때그때마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족속들과 우상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하니,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좌절되며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세계가 되게 해 주시고, 우상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민족까지 그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되니 다 없애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우상 섬기는 자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거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배들, 조폭들, 문신 족속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가 일어나는 자들이 많이 있고 거부감이 일어나는 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부들에게는 문신 새기는 것이 혐증의 인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혐증이 있지 않도록 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주시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모순 없이 하게 해 주시옵고, 공의롭게 행하게 해 주시옵고, 법관들도 하나님 모든 법의 검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게 축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늘 국방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며 함께해주시고, 하나님이 시도하고 계시는 것이 평화의 역사로 이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며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 저 준 후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행해 주시고, 이 민족에게 평화와 이성을 심어 주시고 함께하시는 자가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믿사옵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행하심을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의 온 인류와 78억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지구촌에서 모든 각종 이론과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유일신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그 생명의 말씀이 온 지구촌을 휘두르며 다스리며 가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천 년사 역사를 쥐고 나갈 때에 거침없이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게 해 주시고, 문화 예술의 꽃을 피우며, 개인과 저 민족까지 믿으며, 모든 민족이 섭리사를 국교화하며 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방의 나라에 하나님이 보낸 독수리로 인해서 뜻을 이루고 정녕코 이루어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이 지금 집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함께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 실수해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각양각색으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으로부터 지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많은 생명들을 전도하는 데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시작됐으니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랑이 계속 진전되어서 늘 성령을 부르고 찾고 사랑에 불붙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할 것이 있으니, 신부들로서 늘 시종들며 하나님 뒷바라지하며 열심을 내면서 뛰고 달리는 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모든 역사 이후, 6천 년 역사 이후 더 이상 없는 그런 보람과 이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니, 이를 시종들며 같이 장단 맞추고 춤을 추며 열심히 행하는 이들의 정신이 늘 살아 있게 해 주시고, 군인 같은 정신, 해 같은 정신, 그리고 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이 되어 신부의 사명을 다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구할 것이 많이 있으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잠자지 않게 해 주시고,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 주시고, 평안의 잠을 자되 육적으로 흐르지 않게 해 주시고, 영적인 세계의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해 나가는 하늘의 시대의 신부들, 하나님의 사랑의 왕비들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 역사>는 오래돼서 잊게 되고, 지나가 버린 일이니 잊게 된다.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잊지 말고 생각하여라.
2. 하나님이 지난날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3.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떤 환경에서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 <말씀>을 들었으면,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핵심을 기록해 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록하는 자>는 기록해 뒀기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로 안 잊어버리니 ‘복’이 있고, 죽음에서도 피하게 됩니다.
4.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날을 잊고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오지 못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
5. <지난날을 잊어버리는 것>은 첫째, 오래됐기에 잊어버리는 것이고, 둘째, 지난날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현실을 살아가기에도 바쁘다.’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것이라도 ‘동시성’으로 다시 돌리신다. 다만 ‘차원’을 높여서 역사하신다.
6. 섭리역사 40년을 봐도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시되, 차원을 높여서 역사해 오셨다. 그러지 않으면 ‘내려가는 길’이다. <내려가는 길>은 ‘사망길’이다. 자꾸 올라가야 된다.
7. <사망의 세계>는 ‘밑’에 있고, <생명의 세계>는 ‘위’에 있다. 고로 자꾸 올라가야 된다.<하나님의 보좌>도 하늘나라에서도 ‘맨 위, 제일 높은 곳’에 있다. <땅에 두신 하나님의 백보좌, 월명동>도 해발 450미터로 높은 곳에 두셨다. 그리고 <성약역사>도 신약역사가 끝나는 곳, 맨 위에 놓으셨다. <최고 사랑의 극적인 위치>에 놓으셨다.
8.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해라. 너희가 역사를 펴 왔기에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동시성 역사>로 해 나가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맞장구치며, 저울추를 맞추듯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밸런스(balance)를 맞추며 가야 된다.
9. <지난날>이 ‘하나의 참고서’다. 개인으로 보면, <지난날 자기 경험>이 ‘참고’가 된다. 고로 ‘지난날 어떻게 큰 돌을 세웠지? 지난날 어떻게 회개했지? 지난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지? 지난날 나무가 말랐을 때 어떻게 했지?’하며 지난날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야 된다. 곧, 하나님이 행하시어 성공한 대로 해야 된다.
10. <지난날 역사>가 마음 아팠든지, 기쁨이었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행하신 일’이었으니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항상 기억하며 ‘현재’에서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역사의 기록>을 수시로 봐야 된다. 왜?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지난날을 기억하며 ‘현재’도 풀고, ‘시대’도 풀고, ‘자기에게 처한 문제’도 풀어야 된다.
11. 지난날을 잊지 말아라. - 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이다.
12. <지난날의 경험>이 그렇게도 크다. 지난날 어떻게 해서 복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화가 있었는지 잘 봐야 된다. <지난날>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13. <사탄>도 지난날 너희를 고꾸라지게 한 대로 ‘지금’도 그 방법으로 너희를 고꾸라지게 한다. 이를 항상 기억하고, ‘현재’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아야 된다.

14. <지난날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아라. <구약의 역사>가 비슷하게 ‘신약’에서 진전되었고, <신약역사>를 쫓게 봐도 비슷하게 가지 않았느냐.
15.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잊지 말아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기적으로 행하신 것, 표적으로 행하신 것, 모사로 행하신 것, 신적 역사로 행하신 것을 잊지 말아라.
16.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절대 보호하시며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원수에게 잡혔어도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며 ‘자신의 뜻’을 펴 나가셨다.
17.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를 해하고 고통을 주는 개인, 나라, 민족에게는 ‘10배, 100배, 1000배, 어떤 때는 만배, 어떤 때는 10만 배’까지 갚아 주셨다. <황태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백성들>이 ‘황태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해하고, 우습게 대하니 황태자가 “이들을 가만히 안 둔다.” 한 것과 같다. 고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손을 댔을 때는 지진과 태풍, 가뭄, 추위, 구제역 등 각종으로 고통을 주었다.
18.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 악한 자들,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셨다.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는 수백억의 사탄, 마귀들과 인사탄까지 멸하셨다.
19.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주’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셨는지 자세히 보아라.
20.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났으니, 과거에 은밀히 행한 것을 말해도 괜찮다.” 하셨다.
21.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역사하신다. 어느 때는 생각이 바뀌게 하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 막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돕는 데에 사탄을 경호원으로 쓰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
22. <사람들>은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도운 것을 잊는다. 첫사랑을 잊듯이 잊고, 귀한 것을 모르고 산다.
23. 첫사랑을 잊으면 죽듯이, 지난날을 잊으면 죽는다. 지난날 도왔듯이 도우니 걱정하지 말고 항상 지난날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24. <사랑>이 변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신다. ‘원수’도, ‘자기 편’도 걱정거리가 된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25.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저마다 사연 곡절이 너무도 많다.
26. 지난날과 같이 ‘동시성’으로 역사하니, ‘동시성 공식’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서 시중들라 함이다. ◎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날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 우리는 10%밖에 몰랐지만 끝나고 보니까 90%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돕고 이끌어 내셨는데, 그 털강아지 하나 때문에 그렇게도 성에 불을 지르고 멸하고, 이것저것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했으니, 우리가 더 크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사랑 덩이가 되어서 열심히 살겠사오니,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를 무한히 퍼부으신 하나님, 지난날 섭리역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완전히 그 전지전능함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원인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같이 살고 싶어서 그리해 주셨습니다. 잘 길러서, 멋있게 길러서 같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살 것이니 지난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은 정말 잘하셨고,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머리를 우리에게 다 쓰고 마셨습니다. 지난날을 보니 그 엄청난 전지전능한 생각과 좋은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우리에게 다 쏟아부어서 쓰셨습니다. 정말로 잘하

셨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성령도 성자도 우리를 매일 껴안고 첫날밤 사랑하는 여인 대하듯 대하고 좋아하시며 인생을 다 바치는 자같이 우리에게 다 바쳐서 행하셨으니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성공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섭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을 드리니, 사탄, 마귀들을 다 멸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역사를 펴 나가는 데 부족함 없이 해 나가겠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우리 섭리사에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 성지 땅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었으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랑하심과 성자의 말씀과 더불어 행하심을 감사하며 삼위 앞에 영광 돌리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역사를 편 일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며 잊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다.

2.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무시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형벌 기간을 정하셨으니 그 기간 동안은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형벌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셨다. 만일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다 죽었을 것이다. 대국이었던 애굽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이슬’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셨는지, 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받게 된 원인은, 형제를 미워하고 짐승같이 대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니, 살인미수의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돼서 400년 동안 그 죄값을 받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40년, 혹은 400년, 혹은 4000년으로 기간을 정해서 역사하셨다. 이 기간에 들어가면 이 기간을 꼭 치러야 나오게 된다. <역사를 펴는 자>는 ‘수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기간’을 알아야 된다. 모르면 막연히 한없이 기다린다. 하나님은 <역사>를 ‘한 때 두 때 반 때’로 기간을 정해서 펴 나가셨다. 그 기간이 되지 않고는 벗어나는 길은 없다.

3.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주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4. <하나님의 때>가 되면,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다. <때>가 되면, 다른 시간으로 넘어가 버린다.

5.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을 다 쪼개 놓아서 구약역사, 신약역사, 성약역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6. <이 시대>는 ‘성약역사’다. 사람들은 <신약역사>로 알고 있지만, 1978년부터는 ‘새로운 역사’로 넘어갔다. 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7. 1km는 1000m, 1m는 100cm, 1cm는 10mm로 정확하게 계산하듯이, 이와 같이 <역사>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 시계 바늘이 때가 되면 12시에서 1시로 넘어가듯이, <역사>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넘어간다.

8. 새벽예배 시간을 지키려면 미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2000년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으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준비하시고, 100년 전 부터는 메시아가 온다고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1900년부터는 많은 예언가들이 나타나서 외치고, 40~50년 전부터는 시대가 떠들썩하고 완전히 흥분돼서 “곧 메시아가 온다.” 하며 기다렸다. 그때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간구하던 때라,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따라갔다. 그때 약 300여 개의 종교가 생겨났다. 그리고 한자리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여서 메시아가 온다고 준비하는 집회를 여의도광장(현 여의도공원)에서 하기도 했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망 하나로 이같이 한 것이다. 그같이 엄청나게 야단하며 기다렸어도, 그들이 기다리는 식으로 는 안 됐다. 고로 많은 자들이 실망하고 주저앉았다. 오히려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느냐고 하며 일순간에 사상이 돌아가 버리고 불신해 버렸다.

9. <한국>은 ‘메시아가 오는 나라’이니,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흥강사들이 그렇게도 외쳤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행하신 역사였다. 그들에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느냐고 물어보면, 기다리는 자들이 별로 없다. 30-40년 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릴 때가 그 시대의 신앙의 전성기였다. <결혼해서 살게 되면> 조용한데, <연애할 때>는 동네 방네 소문나고 마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역사>도 그러했다. <실제 메시아가 와서 나타났을 때>는 조용히 말씀을 전하면서 꺾속말을 하면서 갔는데, <기다리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야단을 치며 기다렸다. 그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주가 오신다. 그날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깨어 있어라.’ 하며 성경 그대로 외쳤다. <엄청난 기다림의 역사>였다. 그들이 생각한 천지개벽이 아니라, <구 시대>가 주저앉고 <새 시대>가 솟아나는 천지개벽이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풀고 기다리니, 마지막 역사에 오신 주를 맞지도 못하고, 희망에 불타서 기다리는 것으로 마지막 꽃을 피우고 끝나는 역사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은 선생이 부흥집회에 참여하게 하면서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보게 하시고,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가는지, 세례 요한 역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여 주셨다.

10.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11. <월명동>도 ‘선생이 성장할 때’가 최고 전성기였다. 그때는 <육적인 전성기>였다. 그때 월명동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았다. 지금은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녀도 젊은 사람 보기가 힘들다. <때>가 그리도 무섭다. 그 후로는 <주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 ‘전성기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12. <현재, 지금> 잘해야 된다. <지난날 해 준 것>은 ‘현재, 지금’을 위해서 해 준 것이다.

13.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지금’ 잘해야 된다.

14. 어떤 자들은 지난날 환난, 핍박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느슨하게 한다. <지금>은 ‘사정없이 뛰고 달려야 될 때’다.

15. 지난날 영계를 보면, <죽음의 사자들>이 ‘생명 하나’를 놓고 100명씩 와서 잡아당기고, 끌고 가는 것을 봤다. 지난날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어 이끌어 주신 것을 알고 ‘지금’ 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그리도 중요하다.

16. <지금 행하는 것>으로 ‘과거의 운명’이 좌우되고, ‘미래의 운명’이 좌우된다.

17. <지금>이 귀하다. <지금> 잘하여라.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

18. <지금>을 위해서 지난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으니, 긴장의 허리띠를 풀지 말고 ‘지금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19.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 힘들어서 못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끌고 가야 힘이 안 든다.

20. 지난날 하나님께서 생명을 도와서 살리신 것, 축복해 주신 것, 악한 자들의 세계에서 구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며 오신 것을 깨달아라.

21. <지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같이 살면서 이상세계를 이루며 가야 된다.

22. <주>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며 뛰고 달리고 있다. 초인같이 뛰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열심히 뛰고 달리며 행해야 될 때다. ◎ <섭리역사 40주년의 해>가 끝나기까지 11일이 남았습니다. 이 안에 쇼부 볼 것을 쇼부 보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합니다. 11일을 놓고 사정없이 뛰어야 됩니다. (쇼부/승부(勝負)의 일본어 발음) 지난날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 오늘 새벽에 기록한 말씀을 전해 주고 마치겠습니다.

23. 지난날 하나님과 주가 행하여 인도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24.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행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권 안에서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에서도 도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25. 아무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사랑해 줘도, 모르면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간다.

26. <사람의 뇌>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대로 작동되고 행하게 되기에 생각을 안 하면, 지구가 매일 돌아가고 있어도 모른다. <아는 자의 세계>와 <모르는 자의 세계>는 ‘딴 세계’다.

27. <사람의 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28. <하나님의 역사에 늦게 참여한 자들>은 처음 섭리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모른다. 매일 ‘기적의 역사’였다. <영적 전쟁과 투쟁의 역사>였다.

29.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모르는 자들을 쓰고 막고, 사정없이 해(害)를 주었다. 섭리사가 <하나님의 참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은 지구 세상의 어떤 종교들보다 섭리사를 막고 악하게 대했다. 또한 <이 시대 마지막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니, 최고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괴롭혔다. 개인, 민족, 세계까지 동원하여 고통과 불안을 주고, 온갖 핍박과 괴로움을 주었다. <지옥의 사자들>을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공격하며 전쟁을 일으켰다.

30. <주>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 하나님은 그를 쓰고 행하시며 사탄과 무지한 자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생명들’을 이끌어 내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듯이 ‘하나님의 시대의 생명들’을 이끌어 내셨다.

31.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막고 싸우던 자들>은 이미 그 육신이 죽기도 하고, 혹은 늙어서 ‘무지한 역사’와 함께 흘러가고 끝났다.

32. <적>은 싸울 때 보면 그리도 크게 보이나, 이긴 후에 보니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였다. 고로 ‘저런 자들에게 그리도 고통을 받았구나.’ 생각하니 분하고 원통하기도 했다. <영계>에서 이들을 보니, ‘저주받은 영, 짐승의 영’이 되어 살고 있었다.

33. 우리는 인생에 승리하여 원수 마귀에 속한 영이 되어 살지 않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살아가니, <현실>에서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와 일체 되어 살아가야 된다.

34.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저마다 베풀어 주시며 행해 주셨는데, 신부들이 현실에서 못하면, ‘죽은 인생’이다. 아무리 시대를 따라간다고 해도, ‘보통 인생들’이다.

35. <지금>이 중한 것이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날을 생각하고 잊지 말라고 한 말씀대로 지난날을 계속 보고 잊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돌 말아서 꼭꼭 잡고서 쓰신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그 강한 세계에서 이끌어 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휴거의 신부들이 되게 해 줬는데, 결국은 지금이 잘해야 되는 때입니다. “환난도 어려움도 없을 때, 지금 사정없이 떨 때다.” 말씀했습니다. 모두 그러함을 알고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온 지구촌에 있는 섭리사의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 오고 이끌어 오며 가르쳐서 수가 불어나고, 생명들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연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이 아직도 안 된 곳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계속 허락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였사옵니다. 아멘.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올해 2018년은 섭리역사를 시작한 1978년 이후 40년째 되는 해이다. 40년 동안 해 줄 것을 다 해 주었으니, 그것을 잊지 말고 생각해 보아라. 그리하면 ‘은혜 위에 은혜’요,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불을 받고 불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2. <지난날 해 준 것>을 잊으면, ‘남’이 된다. 남이 되면 남같이 대하고 만다. 그러면 혼자 시험 들고 허우적거리고 울며불며 자기 길을 가게 된다. 가령 <결혼한 신부>가 신랑이 해 준 것을 잊으면, ‘결혼을 안 했을 때’와 같이 ‘남남’인 것이다.
3.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잊으면,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대하게 되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4. <물건을 사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서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돈을 지불한 것을 잊으면 또 낸다. 또 잊어버리면, 또 내야 한다. 고로 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잊으면 안 되고, <자신이 하나님께 해 드린 것>도 잊으면 안 된다.
5. 지난날 하나님은 해 줄 것을 다 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것도 다 이뤄 주셨다. 무엇을 이뤄 주셨는지 보아라.
6. 섭리역사 40년 동안 하나님은 지난날 성경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 주시어 그를 통해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 말세에 대한 예언을 비롯해 각종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 <메시아>를 통해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40년 역사를 펼 수 없고, 창조 목적도 이룰 수 없다. <섭리사에 늦게 온 자들>에게 이를 증거해 주지 않으면, 이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서 이루실까?’ 하며 희망에 차서 기다리기만 한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뤘으니, 이야기 해 주어라.
7. 성경의 예언대로 모두 이루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듯이, 동시성으로 <이 시대>도 주가 부활하실 때 한국에 지진이 일어났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이 시대>는 ‘메시아가 부활하기 직전’에 지진이 일어났다. <보다 이른 시간>을 ‘새벽’으로 보는 것이다. <지혜자>는 이같이 성경을 본다. <모르는 자>는 ‘언제 새벽에 일어났지?’ 하고 생각한다. 본래 한국은 지진이 거의 나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을 중심해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본은 <부활의 때를 알리기 위한 징조>였다.
8. 잊으면, 은혜가 안 된다. 자꾸 증거를 해야 한다.
9. 왜 지난날을 잊지 말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은 지난 40년의 기간을 통해 성서의 시대적 예언을 다 이루셨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섭리사에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삼위와 주를 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삼위와 주와 마음도 안 맞고, 대화도 안 된다. 해 줘는데도 모르고 대했기 때문이다.
10. 지난날을 잊고 대하면, 유대인 같은 꼴이 된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 이루었는데도 모르고 하나님과 메시아를 기다린다. 모르고 기다리면,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예언을 이미 다 이루셨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고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느냐? <육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육신의 정한 이치인데, 예수님을 또 한 번 보낼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당시에 자기들이 못 봤으니 후손들에게 다시 한 번만 보여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겠느냐? 안 된다. 이미 끝난 것이다. 고로 기억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
11. <신앙으로 늦게 태어난 자들>은 이미 주가 다 이론 후에 왔기에 못 보고 ‘성약역사는 맞는데, 왜 성경에서 말한 말세 심판을 안 하지? 이방인들 예언은 왜 안 이뤄졌지? 예수님 때는 부활 후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부활 때 왜 지진이 안 일어나지?’ 한다. - <주>가 와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뤘다.<주>가 오면 말세 때 심판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때 당시 모두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 1999년도 역사에 기록된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즉 시 세계 뉴스를 통해 세밀하게 증거하며 알려 주셨다. 말세 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한 것과 같이, 그때 프랑스 지역에 강풍이 강타하여 약 300만 명의 이주민이 생기고, 베르사유 궁전 내의 나무만 2000주 이상이 넘어졌다. 선생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전에 모두 영상으로 찍어 놓았다. 심판 전에 가장 세밀하게 찍어 둔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새 역사 2000년대를 최고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나라인 프랑스에서 맞이하겠다고, 약 2300만 명이 프랑스에 숙소를 신청할 정도였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놔서 완전히 ‘트리 덩어리’라고 할 정도였다. 그 전에 선생이 프랑스에 가서 평화대화를 했었다. 1999년 7월에 선생은 미국에 있으면서 ‘21일 금식’을 하였다. 금식 후에 원래 독일에 지휘하러 가려다 독일행 비행기 표가 없어서 프랑스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날이었고, 그리고 말세 때 해가 어두워진다고 한 것과 같이 개기일식도 선생이 프랑스에 갔을 때 일어나 낮에도 캄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선생이 프랑스에 있을 때, 그동안 문화 교류를 했던 나라들을 모두 불러서 평화의 행사를 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때문에 두려워서 모두 휴가를 가 버린 상태였다. 방송에 나오기를, 70~80%가 프랑스를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평화의 행사를 위한 장소를 얻기가 쉬웠다. 당시 선생은 21일 금식을 하느라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정도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 날아다니며 볼을 찼다. 그때는 많은 신앙전쟁으로 인해 악인들에게 쫓겨 다니며, 근심, 걱정, 머리가 아플 때였다. 고로 금식을 감행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주는 항상 준비하고 예비해서 ‘하나님의 몸’으로서 갔다. 조건이 잡히면 안 되니, 몸이 말라 가고 뼈가 마를 정도로 해 가면서 하나님을 따라다니고 시중을 들며 다녔다. 이같이 했어도 이론에만 이뤄서 알지, 다른 데서는 모르고 지나간다. 고로 알도록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다. 또 1999년 당시에 있었던 일이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향하는 새벽 비행기에서 프랑스를 내려다보며 하나님께 말하기를 ‘프랑스가 멋있긴 멋있네요.’ 하니 하나님은 “<겔>은 ‘천국’이나 <속>은 ‘지옥’이다. 그래서 심판하러 가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프랑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이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제자 두 명이 마중 나와서 말하길, “오늘이요, 프랑스에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그날이예요. 대마왕이 와서 심판하러 온다는 날이예요. 선생님이 왔네요. 선생님 우리는 심판 안 하는 거죠?” 하며 깜짝 놀랐다. 선생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움직이면서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해 1999년 12월 26일에는 폭풍으로 인하여 프랑스에는 150년, 200년 되는 활엽수, 침엽수들 약 2억 5천 주 이상이 넘어지고 쓰러졌다. 폭풍이 너무 강해서 15톤 덤프트럭도 날아갈 정도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만물을 사역자로 삼고 심판 하셨다.

12. 하나님은 왜 심판하셨을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시고, 시대 심판을 하신 것이다.

13. 한번은 선생이 유럽에 있을 때다. 기독교와 천주교가 482년 동안 하나가 안 돼서 싸워 왔는데, 그때 선생이 이탈리아의 한 성당에 가서 신부들과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풀어 주었다. 그리고 1999년 10월 31일, 천주교와 개신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82년 만에 서로 화해하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자는 나에게 “너는 기독교인으로서 개신 기독교의 대표가 되어 천주교를 한 사람같이 보고, 그동안 오해하고 싸웠던 죄들을 네가 한 것같이 회개하여라.” 하여 석 달 동안 유럽 곳곳을 다니면서 천주교의 실체를 보며 회개하고 성자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한 성당에서 신부들과 구원에 대한 대화를 하고 불과 40일 만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482년 동안 되지 않았던 일인데, 선생이 가서 40일 만에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한 것이다.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를 통해 행하신다. 고로, 그때 개신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에 <평화의 역사>가 일어난 후로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는지 아느냐? 종교인들끼리 1000명씩, 1500명씩 죽이곤 했다. 이같이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모른다.

14. <개신 기독교>도 ‘예수님’이 주인이고, <천주교>도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고 ‘성자’가 주인인데, 믿는 자들끼리 “교리가 다르다. 풍습이 다르다.” 하면서 그렇게도 싸웠다. 싸움은 <시대 주인만>이 가서 말린다. 그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쓰고 나타나시어 그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끝장나고 말았다.

15.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들은 모두 <구원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다.

16.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쪼개어 <양>은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는 왼쪽에 두셨다. <주>가 와서 양과 같은 의인들은 ‘황금 천국’에 두시고, 염소와 같은 악인들은 ‘사망권’에 두셨다. 또한 <양과 같은 의인들>은 ‘새 시대’에 두시고, <염소와 같은 가인들, 악인들>은 ‘구시대’에 두셨다.

17. 하나님께서는 선생이 독일에 있을 당시 ‘EU 공동체’로 유럽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는 일도 행하셨다.

18. 지난날을 생각할 때 모두 ‘기적의 역사’였다. 선생은 지난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지난날 이와 같이 행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섭리역사를 펴 나갔다. 그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으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시며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매일 행해 주신 것이다.

19. 지난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것 중에 ‘성약역사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 고로 자꾸 배우고 가르쳐 줘야 늦게 온 자들이 알고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하게 된다.

2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주>를 알고 대하라.” 하셨다.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같이, 기성인들같이 계속 성경을 읽으며 기다리게 된다.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며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지구상에 심판할 것을 다 하고 가셨어도, 아직 안 했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다. 아직 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많은 생명들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온다.” 한 것인데 그것이 미약하다. 이는 섭리사 신부들이 해야 된다.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21. 성경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한 것을 두고, 기독교는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사탄>은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버렸다. 무덤에서 썩은 시체가 살아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선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 시대 사람들인데 참 한심스럽네요.’ 하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대로 병어리들, 우둔한 자들이 누구냐? 나를 좇지 않는 자들이다. 짓지 않는 개들이다.” 하셨다.

22. <주>가 오면 ‘말씀의 철장’으로 잘못된 관을 다 부수어 놓는다.

23. 많은 자들이 ‘언제 주가 와서 이루어지나?’ 했던 모든 것들을 이미 주가 와서 이루었다. <휴거>를 이뤘고, 도적같이 온다는 말도 이뤘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태어난 날>에 휴거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문이 열렸다.

24.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도 모두 이루어졌다. “<주>는 하늘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주>는 본 그대로 오셨다. <예수님의 노정>대로 예수님이 작은 골짜기 베들레헴에서 나셨듯이, <이 시대>도 ‘동방의 한 나라의 산골짜기, 월명동 작은 마을’에서 오셨다. 성경에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한 것과 같이 ‘월명동, 작지 않은 마을’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가 ‘시대를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땅에 예루살렘을 두리라.” 한 성경 말씀도 ‘땅의 예루살렘이 된 곳, 월명동 자연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음으로 이뤘다. 기독교는 이것을 풀지 못한다. 하나님을 잘못 푸니 전부 짝이 안 맞는 격이다. 고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상 심판을 하고 공중 휴거가 되면 땅에 예루살렘을 둔다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다. 그러나 <주인>은 알고 제대로 푸니, 땅에 예루살렘을 둔다는 성서의 뜻이 ‘천 년 역사를 펴 갈 하나님의 전을 두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궁, 시대의 궁>은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이 시대 천 년 사의 지혜로 만든 하나님의 궁’이다. 하나님은 “나의 전을 높은 데 두겠다.” 한 말씀과 같이 해발 450m의 높은 월명동에 ‘하나님의 전’을 두셨다.

25. <주>는 ‘신’이 되어 움직인다. <주>는 ‘빠른 구름’이 되어 행하였고, <따르는 자들>도 그와 같이 빠르게 행하였다.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할 말은 많지만, 지난날 한 일을 다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해 놓고서, 했다고 큰소리를 치시며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해 놓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말해 줘서 지난날을 서로 알고 기다리지 않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한국을 중심해서 온 섭리사에 있는 나라들이 부지런히 지난날 하나님이 해 준 것, 하신 것, 이룬 것을 증거하고 말해 줘서 모두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에게 하셨듯이 또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산에도 지난날같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공(功)을 또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뇌>가 ‘지체’를 쓰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인간의 육신’을 쓰며 역사해 오셨다.

2.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저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올 때>도 마치 1978년도에 때가 되어 섭리역사를 시작했듯이, 하나님은 <개인 역사의 때>에 그때마다 합당한 자를 쓰고 계획적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뜻 없이 오는 자는 없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목적을 이루셔야 하니 절대적으로 뜻을 두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인도하시고 기르신다. 마치 혼인 잔치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게 하듯이 하나님은 저마다 '구원의 때'에 섭리사에 불러 오셨다.

3.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 하나도 안 뿌리고 밭에서 열매가 나겠느냐? <농부>가 씨를 뿌리고, 퇴비하고, 물을 주며 관리해야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이같이 하나님은 생명들을 기르시고 역사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음성도 안 들리는데 성경에는 늘 함께한다고만 하니, "인생 혼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왔느냐? 늘 내 손으로 했다." 한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건드려서 자기 손으로, 자기 몸으로 행하게 하셨다. 기도하고 신의 경지에 가면,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보고 알게 된다. 사람이 직접 지구를 돌리지 않아도 자전과 공전을 하듯이,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고 계신다. 고로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깨닫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 주셨구나.' 함을 알아야 된다.

4. <사람의 심리>는 100번, 200번을 겪었어도 또 다른 고통을 받으면 다 잊어버린다. <인간의 뇌, 생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다스려야 된다. 항상 '절대성,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5. 선생은 산에서 기도할 때 아예 바닥까지 가서 '더 이상 없다. 확실하다.' 할 때까지 확인했다. 그때 '<영의 세계>'는 지구상에 있는 세계보다 천 배, 만 배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세계다. <육의 세계>는 지구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세계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영원한 존재성이 있다. 어떤 영이라도 육신이 죽듯 죽는 영은 없다. <영>은 영원히 존재한다.' 함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육신>으로는 '영의 세계'를 보기 어려우니,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가르쳐 주시어 확신을 심어 주시고, 체험하게 하신다.

6.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역사를 믿고 확신하지만, 신앙이 식으면 그렇게도 많은 표적을 보고 체험을 했어도 쓰러져 버린다. 고로 과거에 싱싱하게 존재하던 것도 한 번에 말라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7.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주가 인도해 주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는 마친 남자가 결혼하려고 한 여자를 택해서 기르고, 매일 쫓아다니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겨우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된 입장과 같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같이 행하셨기에 본인은 모른다.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됐을 때, 곧 신랑이 나타나서 결혼해서 살 때, "그때 내가 그 같이 한 것이다." 하고 신랑이 속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확실하게 알게 된다.

8.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 먼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에게도 축복을 주셨다. 그래야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자들'이 성장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90%를 절대적으로 잡고 통치해 오셨기에, 인간은 그 단계를 모른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최고'로 해 오셨다.

9. 인간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자들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살피고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감격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

10. 저마다 <자기가 전도된 것>도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 일들'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우리 영을 구원시켜서 영원히 같이 살려는 목적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계획적으로 행하신다. 그러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원수, 사탄'에게 뺏기니 하나님은 인생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고 끝끝내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 고로 주도 늘 말씀하기를, "사탄이 6수까지 하면, 하나님은 7수까지 행하신다. 고로 끝까지 7수까지 하면 이긴다.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하면 사탄도 이기고, 승리한다." 했다. 하나님이 지난날에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을 알고 깨달아라.

11. 선생이 월명동을 개발할 때 '목적'을 두고 매일 행했듯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신의 목적,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난날 주를 통해 매일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며 행하였다.

12. <시대의 역사>를 생각하기 전에, 저마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

13.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듯이, 저마다 자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꺼내 주셨다. 꼭 죽었을 것인데 죽은 데서 살려 주셨으니, 그것이 그리도 큰일이다.

14. <시대 신부들>은 영원토록 ‘하늘 주권권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 고로 <신부들>도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며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 <사랑에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가는 자들>은 ‘인간으로서 신’이라고 한다.

15. 하나님이 결국 자기 하나 때문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만물도 귀히 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창조한 보람을 가지고 좋아하시고,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

16.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지구 세상 76억 명이 자기를 사랑하며 좋아하며 사는 것과 똑같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도 못 한다. 지금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도, 깨달으면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못 느낀다.

17. 자기가 전도했어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땅에 안 왔으면 전도를 못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고, 또 메시아를 쓰고 행하신다.

18. 저마다 매일 생각하고 움직이고 일해서 ‘하루’가 진행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도 이같이 행하시며 섭리사를 이끌어 오셨다.

19.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시어 그렇게도 도우신다. 휴거되어 영원히 끝도 없이 살라고 그렇게도 도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 목적은 ‘마지막 역사의 때’에 이뤄지니, 이를 무섭게 깨닫고 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기뻐 살아야 된다.

20. 아무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신해서 지옥의 문을 열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은 ‘혹시나 돌이킬까...’ 하고 기다리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신다. 한번 돌이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자기 것이 되어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 걸고 생명들을 도우시고 잡아당기시는 것이다.

21.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이해한다.

22. <메시아>는 ‘신부’로서 자기가 먼저 겪고 이야기해 준다. <메시아>가 와야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확신하게 된다.

2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기적’이다.

24.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미 그 영이 지옥에 가서 뜨거운 쑥물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데, <모르는 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따르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고 있다. 그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지옥에 가면, 그제야 알 것이다.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은 죄>다.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지난날 과거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지. 과거에 모든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희 조상 때부터 돕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시대에 태어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와 같이 역사하신 것을 더욱 알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서 90% 이상 늘 지켜 준 것은 영원히 살라고, 같이 들어붙어서 사랑하며 좋아하며 살자고 그렇게 했고, 또 천국뿐만 아니라 땅에서 육신 쓰고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살라고 대해 줬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확실히 가르쳐 줬으니, 이제 뛰고 달리면서 끝까지 행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8년 12월 2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지난날 하나님이 해 준 것, 성령님이 해 준 것, 성자가 해 준 것, 주가 해 준 것>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죽는다.
2. 지난날을 잊으면, 은혜가 없고 불만불평이다.
3. 지난날을 잊으면, 육적인 자가 되어 버린다.
4.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랑하고 살아도, 지난날을 잊어버리면 남이 된다.
5.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잊으면 ‘사탄의 지체’가 된다.
6. <지난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7. <은혜가 없을 때>는 지난날을 생각해라. 지난날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고 환난이 연속돼서 하늘까지 닿던 희망이 땅에 납작하게 붙어 다닐 때, 생명들이 시험에 들어서 나가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같이 도와줄게. 걱정 마. 저런 때가 있다. 넘어질 때가 있고, 제정신이 아닐 때도 있다. 자고 나면 또 일어나진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
8. 지난날을 생각하면 수백, 수천 가지가 ‘은혜’가 된다. <은혜>와 <사랑>이다.
9. 항상 <지난날>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10. 지난날 선생이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줄 때, ‘그와 같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셨구나.’ 함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모두 죽음에서 다 구해 주셨다. 한 사람도 구해 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 죽을 고비에서 살려 주지 않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니 가서 담대히 이야기해 주어라. 그러면 생각나게 해 주리라.” 하셨다. 모두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기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11. <죽을 고비를 따질 때>는 크게 나눠서 ‘사생애 때’ 한 번, ‘공생애 때’ 한 번, ‘부활 생애 때’ 한 번 - 총 세 번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때’ 한 번, ‘신약 때’ 한 번, ‘성약 때’ 한 번 있다. 이같이 세 단계로 따진다. 저마다 기본적으로 죽을 고비가 세 번씩 있었고, 그 외에도 너무 많았다.
12. <선생>은 죽을 고비가 60번 이상 있었다. <7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전반기 때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렇게도 전하니 죽을 고비가 많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 주신 것이다. 또 전쟁터에 갔을 때 죽을 뻔했던 적도 많았다.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다쳐야 알지,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살려 주신 것은 아무도 모른다. 가령 차를 타고 가다가 꼭 사고 날 곳에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 하자. 본인이 아는 것도 있지만, 아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이다.
13. 선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가 있었다. 부모가 이미 포기하고 묻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쳐다보니 그때 아기가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시 쳐다보고 가만히 두니,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났다고 했다. 그때 선생 어머니가 죽은 시체라도 마지막으로 보자고 해서 봤기 때문에 살게 된 것이다.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어머니는 선생의 명이 길다고 ‘명’자로 이름을 지어 주셨다. 어머니는 ‘명(命)’과 ‘명(明)’을 잘 모르고 그리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명(明)’이라 하시며 그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한 이름대로 그 누구보다도 죽을 고비에서 많이 살아났다.
14. <신앙 세계>에서도 그러하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이 죽었다. 이제 끝났다.” 해도, 선생이 마지막으로 본다는 입장으로 전화해 보면 “선생님 죄송해요. 할 일을 못 했어요.”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자들은 ‘산 것’이다. 눈이라도 뜬 것이다. 그러니 포기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살린 사람이 많았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 온 인류의 구원 문제>를 선생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

15. 하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켜보는 데서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 하셨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늘 선생을 ‘사고가 나서 생명들이 죽을 위치’에 보내시어 이들을 살리게 하셨다. 특히 월명동 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라!” 하고 선생의 입을 통해 소리를 지르셨다. 그러면, 꼭 사고 날 것인데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됐다. 이와 같이 지난날을 생각하면 ‘은혜투성이’다.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증거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16. <자기 인생의 연륜>은 짧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연륜’은 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곧,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마다 역사해 주신 것>이 많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대해 주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것’이다. 왜? 그냥은 ‘사랑 덩어리 신부’가 되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생명들을 길러서 신부로 만들기 위해 사정없이 사랑을 투자하셨다. <사랑>으로 길러야 ‘사랑 덩어리 신부’가 되기 때문이다.

17. <사랑 덩어리>로 만들어야 ‘사랑’을 받지, 그냥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신부’로 만들기 위해 사랑을 한없이 투자해 주셨다는 것이다.

18. <사랑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19. <신약>은 ‘자녀급 시대’로서 ‘신부급, 애인급 사랑’은 할 수 없다. <사랑의 말씀>은 ‘성약 신부 시대’에서만 할 수 있다. 고로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이성, 저 성 할 것 없이 다 멀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육으로도, 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 받으신다.

20. <과거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잊고 사는 자>는 ‘육적인 자’가 된다.

21. <과거에 하나님이 해 준 것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늘 그 은혜로 사는 자>는 ‘영적인 자’가 된다.

22. 방언하고 예언하고 불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 덩어리로 알고 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자가 ‘영적인 자’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다. 연단이다.” 하며 이겨 내기에 신앙이 죽지를 않는다.

23.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지난날을 생각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 냈다.

24. 어려울 때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해결된다.” 하고 대답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지난날 해 준 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 좀 깨달아라.” 하며 어려운 일이 닥치게도 하신다. 고로 기도하면, 지난날이 생각나서 감사하게 된다.

25.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현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26. 감사해야, ‘현실’에서 열매를 맺고 얻게 된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 ‘현실’에도 잘했다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난날을 꼭 생각해라. <지난날을 생각하는 것>은 ‘계시’와도 같다. 지난날과 같이 작전할 것이니, 그리 알도록 해라.” 하셨다.

28. 어느 정도로 지난날을 생각해야 하는고 하니, ‘예수님 때 해 주신 것’까지도 고마워하고 삼위를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왜? <신약역사>가 아니면 ‘성약역사’가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29. 지난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 자꾸 물어보고 배워야 한다.

30. <월명동을 살 때>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는 주인이 땅을 안 판다고 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다. 그때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땅을 살 때는 <지역 전체>를 ‘한 여자’로 보고 샀다. 한 여자를 차지할 때는 ‘손’만 차지해도 안 되고, ‘다리 한쪽’만 차지해도 안 된다. 고로 전체 땅을 한 명의 여자로 보면서 사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사서 결국 이제는 ‘한 덩어리’가 됐다. 그렇게 되기까지 15년, 20년 정도가 걸렸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이같이 어렵게 해 왔다는 것이다. 신앙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육적인 죽을 고비도 넘기며 왔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잡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에서 나가서 사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31. <지난날 하나님이 각양각색으로 해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야 자기가 깨닫고 알게 된다.

32. 지나갔다고 해서 ‘애굽 땅을 지나왔는데 뭘 생각해?’ 하면 안 된다. <지난날의 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날’을 꼭 생각해야 한다.

33. 지난날같이 해야 사탄도 모르고 적들도 모르니, 그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난날을 늘 생각해라.” 하고 말씀하시며 ‘현실’에서 역사해 가고 계신다. 고로 늘 지난날을 잊지 말고 생각해라.

34. <모르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적들이 많았을 때>는 모르고 사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나갔기에 “지난날 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하자.” 하며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비밀이라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복지에 와 있을 때>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35. 선생도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다 끝나고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복지로 왔기 때문에 지난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36.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땅을 사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다. <동그래산을 살 때>는 주인이 죽어도 안 팔겠다고 해서 각종으로 작전을 해서 샀다. <성령 폭포 자리를 살 때>는 주인이 그 땅을 안 팔려고 아예 터를 닦고 집을 지어 놓기도 했다. 고로 눈물겹게 40일 조건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40일째 되는 날 꿈에 ‘하얀 뱀을 잡는 것’을 보이시며 그 땅을 허락한다는 계시를 보여 주셨다. 그때 비싸게 주고 땅을 산 것이 분해서 ‘이 산에 보물이 있는가?’ 하고 돌아다닐 때, 500톤짜리 바위를 발견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리 소견이 좁으냐?” 하셨다. 그 산은 ‘성령’같이 생겼기에 거기에 <성령 폭포>를 만들어 놓았다. 앞산에는 <하나님 폭포>를 만들어서 두 폭포가 ‘한 짝’이 되게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

37. <지난날>과 <지금>은 마치 ‘난자’와 ‘정자’와 같다. 둘이 하나로 합해져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돌아간다.

38. <지난날>을 생각하면, ‘은혜’가 오고 ‘은총’이 온다. 지난날 미련 없이 밀어붙이며 행했기에 ‘현실’에서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라. 태만하면 안 된다. 조금만 더 가면 늙어 버리니, ‘이제 10년밖에 못 산다.’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달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날을 생각하라는 것을 아주 못을 박듯 말씀을 했습니다. 왜 지난날을 생각하라고 했는지를 어필하며 가르쳐 주고 했습니다. “지난날을 잊으면 남남이 되니까, 내가 남으로 대할 것이다. 잊기만 하면, 지난날의 역사가 죽으면, 현실의 역사를 제대로 펴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며,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사랑에 불붙어 열심히 살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오늘도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죽음에서 늘 건져 주심을 알고, 지난날같이 하심을 깨닫고 늘 감격하며 시대 역사를 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은 ‘섭리’, ‘섭리역사’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었으니, 하나님이 섭리하는 것을 잘 깨닫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말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우리 모두에게 기회로 와서 생명 연결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이 중요한 때인데 ‘제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 고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중한 때인데,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주가 같이 있지 않을 때는 천 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는데, 지금 주가 와서 같이 하는데도 모르느냐?” 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한 명, 한 명에게 이 일, 저 일 지시해 주고 말해 주지 못한다. 지금은 전체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 개인 한 명을 만나 주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수만 명을 한 명씩 만나서 ‘너는 이 일 해라. 너는 저 일 해라.’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전체에게 말씀해 주니, 말씀대로 주를 따르며 주와 같이 행해야 된다.” 하셨다.

2. <지금>이 중하다. 왜? 부활됐기 때문이다.

3. 정미소에서 곡식 껍질을 깔 때, 기계를 돌리면 거의 다 껍질이 까진다. 그런데 그중에 안 까지는 것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을 ‘뇌’라 부른다. 그 안 까진 것으로 인해 또 한 번 돌릴 수가 없다. 왜? 그러면 이미 껍질이 까진 곡식의 알맹이까지 다 까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대로 더 돌리지 않는 것이다. 가령 <과일>도 다 익었는데 그중 하나가 안 익고 시퍼런 상태이면, 익을 때까지 놔두고 다시 따러 오지 않는다. 안 익은 것은 까치가 따 먹게 두거나 그냥 버리고 와 버린다. 선생이 어렸을 때, 곡식 거둬들여 기계를 돌려서 까는데 안 까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뺨들거리면서 안 까지면 큰일 난다.’하며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이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면 ‘껍질이 일찍 까지는 곡식’과 같다. 곡식이 익을 때 같이 익어야 된다.

4.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과 같이 섭리사에서도 보면, 말을 안 듣고 걱정 끼치는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성을 만나고 다니고, 어떤 자들은 악평자들을 만나고 다니기도 한다. <주>는 이들을 두고 다시는 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선포했다. <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계속하면, 바로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깨닫고 굴복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 돼서 잘하는 자가 있고, 그러지 않고 뺄어져서 나가는 자도 있다.

5. 이를 확대시켜 종교 세계를 보면 <잘 까지지 않는 곡식>과 같이, ‘제때 까지지 않는 교파들’이 있다. 잘못하면 이단이 되어 버리고, 회심하고 잘하면 하늘의 역사에 참여하고 그 나뉠대로 구원을 받는 교파가 되기도 한다.

6. 하나님 앞에 ‘익은 곡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할 때> 같이 해라. 전도하자고 했으면 같이 전도해야 되는데, 안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 놓고 다 끝난 다음에 혼자 허허벌판을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이 중한데, 지금 할 때 주와 같이 안 했기 때문이다.

8. <하나님>도 기회를 주시고, <주>도 기회를 주시니, 그때 깨닫고 해야 된다.

9.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지금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좋은 때다.” 함은 누구든지 깨닫고 안다.

10. 지난 역사를 보면, “지금 이 중하다.”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한창 ‘휴거 준비를 할 때’였다. 그때 최고의 극적인 말씀을 받았고, 또한 50년 동안 몰랐던 <혼의 세계>에 대한 인봉을 떼기도 했다. 그동안 <혼의 존재>는 ‘하나의 마음과 정신’으로 봤는데, 그것이 아니다. <혼체>는 육체같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영체> 밑에 ‘제2의 영체’로서 혼체가 존재하고 있다. 고로 육신이 죽으면, 혼체가 영체와 일체 돼서 영의 세계로 가니, 육신이 가지 않아도 마치 육신이 간 것과 같다. <혼체>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 정신의 세계의 실존체’이다.

11. 만일 <생각>이나 <정신>이 반영된 혼체가 없다고 하면, 육신이 죽은 후에 지옥에 갔어도 ‘고통’을 전혀 못 느낄 것이다. 육적으로 보면, <정신의 핵>은 ‘신경’이다. 신경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때려도 아픈 것을 모른다. 식물인간이 되면, 아무리 “어떤 고통이 온다.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해도 걱정을 안 한다. <신경>이 죽으면 뇌사 상태, 혹은 죽은 상태로 본다. 그래서 감각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본다.

12. 성경을 보면, “<행실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했다. <감각>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중 하나는 ‘정신이 예리한 것’이다. 늘 <정신>을 차려야 한다.

13.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을 잘해야 되고, 생각이 항상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생각이 하늘까지 미쳐야 하고, 생각을 눌러서는 절대 안 된다.

14. <사람>이 ‘생각’을 눌러지 않고 일을 하면 10배, 20배, 30배, 100배, 1000배까지 할 수 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은 하니, 그것이 곧 100배, 1000배 더 하게 된다는 것이다.

15. 선생은 10년 동안 극적으로 뇌를 돌리면서 뇌에 대해 연구했다. <뇌>를 연구하니 결국 ‘육에 대한 것’도 터득하고, ‘영의 세계에 대한 것’도 알게 됐다. <영의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생각’에서 좌우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영>이 없다.” 하는데, 이 역시 자기 생각에서 좌우된다. 그래서 <생각>이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다.

16. <자기 생각>을 항상 투철하고 예리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생각해야 된다. 곧, <신의 세계,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주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17. <시대를 아는 데 실패한 자들>은 ‘생각’이 실패했다. <생각>을 제대로 못 해서 실패한 것이다.

18. <기도>를 깊이 하면, ‘생각’이 좋게 된다.

19. <생각이 썩은 자들>, <생각이 잘못된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는데, 그 <영>을 보면 사망에 가 있다. 왜? 자기 행위가 옳은 것으로 생각하나, 주의 생각과 같지 않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 <기성인들>도 보면, 자기 주장이 절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틀렸다. <섭리사 안>에서도 보면, 생각과 사상이 잘못된 자는 본인이 절대 맞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21. <하나님>은 새 시대가 돼서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와 일체 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다 죽은 것으로 보신다. 고로 <주>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자’를 통해 구원도 하시고, 휴거도 시키신다. 고로 <주가 있는 곳>이 ‘천국’이며, ‘생명권 빛의 세계’다.

22. 성경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와 같이 가오리다.” 했다.

23. <인간의 생각>은 자기가 아무리 온전하게 한다고 해도 마음을 못 놓는다. <사탄>이 ‘무지’로 인하여 사망으로 채어 가 버리기 때문이다.

24.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는 자는 나의 반대자다. 사상이 잘못된 자다.” 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주>와 같이 생각을 하지 않고,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는 자는 ‘사상이 잘못된 자’다.

25. <메시아>는 하나님과 바로 의논한다. <생명들>에게 해를 주든지, <섭리사>에 해를 주든지, <주>께 해를 주는 꼴을 못 본다. <주>께는 권능이 있고, 세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흔드는 주권이 있다. 고로 하나님께 한 번 올리면, 일개 나라가 절단 난다. <주>가 그리도 크고 귀하다.

26.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통해 ‘휴거’도 시키셨다. <성령>도 주로 인해 오셨다. <주>가 아니면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휴거시키지 못한다. 왜? <주>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육신이기 때문이다.

27. <성령>은 하나님을 뒷바라지하러 오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너 개인을 보고 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네게 임하시니 너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온 것이다.” 하고 늘 교육해 주셨다. <선생>이 못 깨달으면 안 되니, 성령께서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함께해 주셨다는 것이다. 고로 선생은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과 대화하고 늘 확인하며 행

했다. 시작하는 곳에서 한 발짝만 방향을 잘못 돌리면 다른 길로 가 버리니 평생 가도 헛일이기 때문이다. <이단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교리가 잘못됐으니 다른 길로 간 것이다.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잡은 자>가 ‘최고 주권’을 잡고 한다.

28. 항상 그 시간, 그 순간마다 인생은 진행되고 있다. 깨닫고 보면, 항상 그 순간이 중요하다. <깨닫지 못한 자>는 ‘앞으로 가다가 보면 중한 때가 있겠지.’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항상 그 시간, 그 순간이 중하다. 그래서 “현재가 중하다.” 한 것이다.

29. <중한 때>를 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도 중요하다. <사전에 준비를 못 했을 때>는 ‘현재, 중한 때’가 와도 중요한 것을 잡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30.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다 잊어버린다. 왜? 영계의 말씀이라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고로 선생도 영적인 세계에서 계시를 받았을 때는 바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영적인 깊은 말씀이라 바로 삭감되어 버린다. 평소에 늘 들던 얘기가 아니니 귀로 들었다가 그때만 즐거워하고 바로 잊는 것이다. 이는 마치 손뼉을 때 느끼다가 손을 땔 때는 바로 못 느끼는 것과도 같다.

31. 한번은 선생이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리지.” 하고서 바로 잊어버렸다. 그래서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계속 찾았더니, “그냥 놔두면 평생 생각도 안 난다.” 하셨다. 그러다 그 단계의 삶을 살 때 다시 기억이 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와 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잠언 받을 때도 항상 그 단계로 올라가야만 한다.

32. 구약의 말씀은 구약시대에 있기 때문에 구약말씀밖에 받지 못했다. 신약인들은 신약시대에 왔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신약인들은 성약시대에 오기 전까지는 성약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 단계에 올라와야 받는다.

33. 하나님께 고하기를,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역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 누가 있냐고 생각합니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 머문 사람들은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나안 복지로 간 사람은 ‘더 이상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격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삶의 위치대로만 말하지, 삶의 위치가 아닌 것은 하나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상상으로, 환상으로만 생각한다. 이를 전해 주어라. 말씀을 전해 줬는데도 각종 말을 꺼내면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전해라. 그래도 무시하면, ‘내가 너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전해 주어라.” 하셨다.

34. 그 주관권은 그 주관권 이상을 못 본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이는 것은 시야까지만 한정되어 있다. 더 보려면 더 가야 한다. 인간의 시야에 한계가 있듯이, 생각에도 한계가 있다. 바다를 쳐다보면 바다의 수평선까지만 보이고, 거기서 더 가야 더 보이는 것과도 같다. 생각도 거기까지 가야 생각나고, 배운 것에서 더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은 생각이 안 난다.

35. 선생이 토끼 울무를 해 놓은 곳에 노루가 얹혀서 왔다 갔다 하는데, 혼자 끊고 갈 노루가 없다. 구시대도 울무에 얹혀서 요리 갔다 조리 갔다 하는 격이다. 우리는 과거에 얹혀 있던 울무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한 줄 아느냐? 안 끌러 났으면 못 왔다.”하고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서 오게 되었다. 실상 자기의 책임 분담을 100% 다 한다 해도 못 온다. 난자 하나로 생명을 이룰 수 없고, 정자 하나로 생명이 생길 수 없다. 두 세계가 일체 되어 구원이 일어난다.

36. 하나님은 누구의 주관도 안 받고, 어느 누구의 영향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스스로 존재를 해야 한다. 중요한 이때에 잘하려면, 성령 안에서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37. 성령집회는 평소 생활과 연결되는 시간이다. 성령님을 한번 모셨으면 그대로 모시고 가야 된다. 하루에 열 번, 스무 번 부르기만 하지 말고 생활 속에 같이 동행해야 된다.

38. 부부 일체는 마음 일체 되고, 나아가서 생각 일체 되어 같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딱 붙어

살아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살면 항상 붙어 사는 것이다.

39. 하나님은 주의 입을 통해 매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기성은 매주 옛날 얘기만 계속한다. 그 자체 수준이 신약권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치 차가 지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기성의 세계에서 아무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며 난리를 쳐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위험하다. 기독교에서 은혜 받고 오히려 새 역사로 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의 한계를 느끼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은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새 역사의 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40. 우리는 시대 역사를 잡고, 이제 휴거되었다. 휴거가 됐는지 확인하여라. - 메시아를 절대 믿을 것! - 주의 말씀을 절대시킬 것! 왔다 갔다 하면 휴거도 왔다 갔다 한다. 시대 말씀을 듣고 그 주관권에 살면 휴거된 것이다. - 절대 깔끔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 -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할 것!

41. 지금이 바짝 따를 수 있는 기회이다. 지금은 100%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믿고 시인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다녔듯이 해야 된다.

42. 메시아를 끈질기게 쫓아 메시아 뇌에 인식된 자가 생명록에 100% 있는 자이다.

43. 하늘 신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6000년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일 큰 것이 하나님의 신부를 찾는 것이다.

44. 지금이 중요하다.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주는 이미 프로그램을 짜 놓고, 언제 떠날지 시간을 정해 놓았다. 성령께서 “분위기에 빠지지 마라.” 하셨다. 그래서 분위기에 빠지지 않고, 지금이 중요하니 딱딱 움직인다.

45. 시간도 중요하게 맞춰 움직여야 되지만, 손발을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선생이 축구 할 때 보면, 축구만 보여 주려고 하지 않는다. 섭리사를 어떻게 뛰어왔는지를 보여 준다.

46. 지금이 중요한 때이다. 특히 최고의 전성기에 부활되어서 가는 때다. 영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때다. 지금 못 만들면 안 만들어진다. 지금 알맹이가 안 까지고 뻥질거리면 큰일 난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새가 쪼아 먹는다.

47.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극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지금 중요하다.’는 말을 보통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 위치와 사명이 다르고 저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은 그에게 찢려 줘야 된다.’ 하고 찢려 주신다. 그것이 자기에게 가는 계시이다.

48.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오게 된다. 다른 사람은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필요가 없다. 각자에게 그릇대로 말씀이 가고, 생각을 주는 말씀이 전달되어 성령 안에서 일을 행하게 된다.

49. 선생에게도 역시 다른 자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계시가 온다. - 지금 말씀을 더 확실하게 써야 되고, 지금 교육을 막 해 나가야 하고, 지금 전국을 누벼야 하며, 지금 모두 만나야 한다. 20년 동안 못 한 것을 지금 전국을 누비면서 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50.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의 때가 있다. 초를 다투며 순간 지나가는 때를 잡아서 탁탁 해 나가야 된다. 마치 축구 할 때 볼을 달고 나가며 마지막 순간에 골인 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과도 같다. 선생이 왜 골을 잘 넣는지를 아는 자가 없다. ‘지금 중요하다.’를 항상 참고해서 한다. ‘지금 중요하니 발을 제대로 대라. 지금 중요하니 제대로 순간 판단하라. 어디서 찰지 판단을 정확히 100% 하라.’ 하고 성령이 코치하신다. 영계에 들어가야 제대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슈팅 성공률이 80%다. 지구상에 이같이 하는 자가 없다. 프로 축구 선수들이 와서 처음에는 보통으로 하다가 나중에 선생이 한자리에서 골키퍼 28명 세우고서도 230골을 넣는 것을 보고 안 믿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 그때부터 “배우겠습니다.” 했다. 선생이 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난다. 날아. 나는구나.” 하며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51. 그때그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선생은 ‘날아다니는 범’이다. 10대 때부터 20년 동안 절벽에 가서 놀던 사람이다. 암

벽 타기에 완전히 능하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아닌 계단을 내려갈 때 꼭꼭 난간을 잡고 다닌다. 왜? “성령께서 꼭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고 내 마음이 놓이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도 성령님도 맘 놓이게 항상 꼭 잡아 주신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죽은 자도, 식물인간이 된 사람도 몇 번 보았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라.

52. 선생이 계단을 얼마나 빨리 다니는지, 엘리베이터보다 훨씬 빠르다. 실제 본 사람들에게 들어 보면 소름 끼치는 일이 너무 많다. 역사의 초창기에 박연화 목사가 문에 딱 기대고 앉아서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선생이 나갔다고 했다. 실제 문을 안 열고 나갔다. 선생은 엘리베이터보다 빠르고, 차보다 더 빨리 다닌다. 몽산포에서 바닷물을 멈춘 표적도 본 사람들이 많다. 표적은 하늘을 찌르는데, 증거는 땅바닥을 걷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이 아니냐.” 하셨다. 사람을 쓰고 행하셨다. 사람을 철사로 묶어서 물에 넣어 났을 때 혼자 풀고 나오듯이, 선생도 사탄들과 악인들이 묶게 놔두고 기다렸다가 “이제 됐다. 도망간다.” 하고 물에서 짹 올라와서 수영하고 나오는 역사를 늘 해왔다.

53.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귀하다. 그때 팍팍 무릎 꿇고 ‘이때다!’ 하고 쇼부(‘승부’의 일본어 발음)를 봐야 한다. 월명동 개발할 때도 “이때다. 돌을 살 때 밀어붙이고 왕창 사 버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했다. 범석 목사가 왕창다 사서 쌓아 놓았는데, 그 후에 돌 광산이 문을 닫아서 한 개도 사지 못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 잘 모른다. 그러나 메시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빨리하라고 할 때는 빨리해야 된다. 뛰고 달려야 된다.

54. 생각 실상 세계다. 하늘나라 영들은 생각하면 실상 그 위치에 가 있다. 선생은 한동안 육신으로 그와 같이 했다. 생각하면 생각한 위치에 가 있다. 테니스를 쳐도, 축구를 해도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 그렇게 빠르게 한다. ‘시간축지’를 쓰기 때문이다.

55. 하나님께 “지금이 중하다.”는 계시가 올 때가 있다. 이 중한 때가 가기 전에 준비하는 기간도 아주 중한 것이다. 준비 안 하면 못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하다고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

56. 지금 우리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왜? 메시아 사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고로 거기에 맞춰야 한다. 자기 시간을 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건강을 잘 유지하면, 최고 20세에서 30세까지 젊게 보이리라.” 하셨다. “하나님, 젊게만 보이면 뭐합니까? 그러면 얼굴만 마사지하면 되는데.” 하니, “그것이 아니다. 육체의 모든 기구가 그렇게 되리라.” 하셨다. 엇그저께 선생의 상태로 봐서는 113세까지밖에 못 간다고 했다. 더 운동하고, 더 신앙이 건재해야 된다. 메시아의 몸값은 하나님 몸값이라 일반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된다. 그래서 위험한 데는 잘 안 간다.

57. 후대에 가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은 또 다르다. 지금은 주를 직접 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때냐. 지구상에서 제일 큰 것은 메시아를 보는 것이다. // ‘사천 억, 오천 억’이 되는 그림이라도 메시아 앞에는 껌 값만도 못하다. 사람 하나만 구해도 ‘몇 조’가 왔다 갔다 한다. 영원히 사니까 그 값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은 어디에 가더라도 신경 쓴다.

58.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다.

59.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라. 우리끼리는 힘들고, 모르니 이해를 못 한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주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하기 전에는 마음을 못 놓는다. 말씀을 듣고 뛰고 달리되,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해야 마음이 놓인다. 확인받고 하면 완전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서 항상 하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줬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더 해 주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모두 전 세계에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전체가 각자에게 지금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겠지만, 그래도 각자 또 그릇대로 자기 위치대로 다른 말씀을 깨닫게 해 주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깨우쳐 주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도 여념 없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항상 지금이 중하다 했습니다. 지금 시간도 중하고, 그리고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 봐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행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줘도 잘 모릅니다. ‘기회는 오래가지 않고 순간 지나간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 중요한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모두 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행하라. 주와 일체 되도록 해라.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약하다. 계시록의 말씀에 7개 교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각 지적 거리가 많았어요. 이 교회 지적 거리는 역시 “주에게 인식되는 자가 되

고, 주와 일체 되는 자가 되어라.” 이런 것입니다. 주와 일체 되는 것이 멀면 사랑의 촛대를 옮겨 가고, 뜻을 옮길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고 물론 휴거를 받기는 받습니다. 이 시대가 이를 깨닫고 영광을 돌리며 영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깨닫고 부활되고 새롭게 되고, 지금 중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가 그렇게도 편지해서 그렇게도 애기했는데, 그것을 옛날 애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편지 한 장 쓰라고 그렇게 해도 하지 않고, 다만 전체 편지 한 장으로는 해도, 개인에게는 편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역시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그때 내게 기회였구나.’ 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깨닫고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이 교회에 영원하고, 그리고 섭리의 교회마다 항상 충만할지어다. 지금 귀한 것은 그 화살이 가슴에 꽂혀서, 말씀의 화살이 뇌에 꽂혀서, 이 말씀을 뇌 속 깊이 뺏속 깊이 새기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늘 간구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삼위일체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 사랑의 대상이 돼서 온전히 살도록, 모두 지금이 중한 것을 깨닫고 항상 생각 놀리지 말고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 위해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이 중하다. 왜? <과거>에 희망했던 것<이> 지금 이뤄지기 때문이다.
2. <지금>이 중한 것은 지금 ‘실천’하며 행하기 때문이다.
3. <지금>이 중한 것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금> 존재하니, ‘지금’이 중하다. 다만 <과거>는 지나갔으니, ‘과거에 기도한 것, 바라던 것’이 남아 있다. 이것을 지금 때가 돼서 준다.
4. <과거>나 <미래>는 ‘현실’이 아니다. 1분, 1초만 벗어나도 그 시간은 ‘현실’이 아니다. <지금>만 ‘현실’이다. 고로 <지금>이 그렇게도 중하다.
5. 항상 ‘지금’ 정신 차리고 행해야 된다.
6. 선생이 시대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미래에는 어떻게 하지? 미래에는 무엇을 하지?’ 하고 생각하니,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때 가야 생각이 오고, 보이고, 들린다.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지금’이다. 지금 나와 같이 이야기 하자.” 하셨다. 성자께서도 “<지금>이 중하다.” 말씀하셨다.
7. <지금>은 ‘대학부 종강예배’다. 고로 지금 할 말을 해 줘야 된다.
8.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지금’ 쳐다보고 계신다. 고로 <지금> 대화하고, 할 말을 해야 된다.
9. <지금> 졸지 말아야 한다.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 <지금> 주력해야 된다.
10.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현실’도, ‘미래’도 그 운명이 좌우된다.
11. <뇌의 핵>은 ‘정신, 생각’이다.
12. <뇌>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으로 살아간다. 고로 <뇌>가 흐리멍덩하면, 제대로 살아 나갈 수가 없다.
13. 항상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으로 운명이 좌우된다.
14. <뇌>는 마치 ‘전파를 받아들이는 수신탑’과 같다. <뇌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고로 정신을 팔든지, 정신일도 하지 않으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을 잡을 수가 없다.
15. <뇌>는 ‘눈’이다. <눈>은 쳐다볼 때만 보이지, 쳐다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

16. <선생>은 '정신적인 지도자'다.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늘 정신일도 하고, 그 정신에 '온전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빠질 수가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빠지면, 정신이 무너지고, 흐리멍덩하고 사고가 잘못된다.
17.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보면, '사고, 생각'이 잘못됐다.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생각'이 잘못되니 지금 그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18. <기성인들>도 '생각'이 잘못됐다. <글>로 따질 때는 '성경'이 하나님이듯, <육>으로 볼 때는 그와 연결된 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은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두고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19. 모든 것이 '생각, 정신'에서 좌우된다.
20. <선생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정신'을 더 일도(一到) 시켜서 했기 때문이다. <정신>에서 날아야 '몸'도 난다. <생각>에서 날아야 '손발'이 난다.
21. 정신을 차리고 했어도 안 되는 것은 '몸'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러하다. 고로 계속해서 몸을 만들어야 된다. 반복하고 연습해야 된다. 이것이 '성공의 비법'이다.
22. <뇌>는 '받아들이는 수신탑'이기도 하면서, '보내는 송신탑'이기도 하다. <받는 것>과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다. 고로 <뇌>에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몸도 그 결정대로 움직이게 된다.
23. 정신이 일도 됐을 때는 '몸'도 일도 돼서 움직인다.
24. <아담과 하와>는 '정신, 생각'이 잘못돼서 그로 인해 '육신'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졌다. 항상 <정신>이다.
25. 지금 정신 일도 하면, 즉시 하나님과 통한다.
26. 지금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27. 조금 늦더라도, '지금' 완전하게 행하고 가야 된다.
28.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일을 꼭 해야 된다. 할 때 100% 해 버려야 된다. 이는 '일의 법칙'이다.
29. <지금>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그런데 왜 '지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
30. <최고의 학문>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워서 행하면, 백 년을 살아도 '천 년'만큼 일을 하고 간다.
31.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면, 한 민족이 반만 년 동안 못 해 놓은 것도 해 놓는다. <주>가 당세 때 해 놓은 것을 보아라. 하나님과 일체 돼서 하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렇게도 성경을 해석했어도, '시대 주인'이 와서 푼 것과 비교가 안 된다.
32. <지혜>는 '판단'이다.
33. <주>는 '지혜의 왕'이라,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자꾸 '지혜'를 배우게 된다.
34. <미인>은 항상 '미(美)'를 나타내듯이, <지혜의 왕>은 항상 '지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3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으니, 곧 '정신 닦기, 생각 닦기'

다.

36.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고, ‘인생 뭐냐?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한다. 그때는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고로 항상 <정신>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대화해야 된다.

37. 연구해라. 생각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구상’을 받아라. 그 구상을 받아서 해야 볼 만하고, “여봐라!” 할 수 있다.

38. <지금>, 중한 것이 다 지나가고 있다. 고로 지금 빨리 행하여라.

39.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해야 된다.

40. 시간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적은 시간’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행하여라. 송곳을 가지고 뚫듯이, 뚫고 행하여라.

41. 지금 열심히 못 하면 미래에 희망이 없고, 원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

42. <지금>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될 때다. 왜? 20년 동안 기다렸던 주가 직접 나타나서 하기 때문이다.

43. 과거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주가 지금 와서 외치고 있다. <주>가 와서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 역사에 해당되는 것,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다 행하고 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중하느냐.

44. <과거에 그렇게도 기도하고, 울면서 주를 기다렸던 자들>이 지금 주가 왔는데도, 제 할 일만 하러 떠나간다.

45. 지금은 부활 후 살아나서 밀어붙이며 행할 때다.

46. 과거에 그렇게도 원하던 일이 지금 때가 돼서 왔는데, 지체롭게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때>는 가고 있다.

47. <지체롭게 해야 될 것>은 지체롭게 하되, <행해야 할 것>은 여건이 좋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 주와 같이 행해야 된다. 행해 놓고 쉬고 노는 것이다. <행하지 않고 잠을 자는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

48. 섭리사 지난날을 볼 때, 적들이 앞에서 밀어붙이고, 옆에서 밀어붙이고, 뒤에서 밀어붙이니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그때 갈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 곧, <하늘>로 솟는 길이였다. 그때 하나님은 이를 꿈으로 보여 주셨다. 꿈에 섭리사를 나간 한 악평자가 도끼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고 있었다. 보니까, 그 도끼는 선생 것이었다. <말씀의 도끼>를 가져다 던졌더니, 그가 도망가는 것이 보였다. <주>에게는 ‘말씀’이 ‘검’이요, ‘무기’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가 말하는 대로 된다.

49. 지금 성령과 주와 대화하여라.

50. (성령님) 지금 나와 대화하며 행하도록 해라.

51. <기도>로 대화하여라.

52.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주도 말씀하고 있다. 고로 그 말씀을 들어라. 깨달아라.

53. <지금>이 ‘최고 좋은 기회’다.

54. <지금>이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있어 ‘최고 여건이 좋을 때’다.

55. <실패한 자들>을 보면, ‘지금이 중한 것’을 몰라서 행하지 않은 고로 실패했다.

56. 지금 네 앞에 성공할 것이 지나가고 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이 안 돌아가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모든 것이 좌우 된다.

57. 하나님은 ‘말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 놓은 것을 보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을 보고 판단하고, 따라야 된다.

58. 하나님은 말없이 행하시고, 해 놓고 가신다. 행하신 것 자체가 ‘말씀’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59. <성령의 감동>도 ‘말씀’이다. <감동을 주신 것>이 ‘말씀한 것’과 똑같다. 가령 어디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뇌 수신탑’에 감동을 주신 것이다.

60. <지금>은 ‘주와 함께 행할 때’다. ◎ 여기까지 오늘 받아 온 말씀을 다 전해 줬습니다. 오늘은 대학부 종강예배이니, 조금 더 말씀해 주겠습니다. ◎ 섭리사를 뛰는 자들을 보면, 학교 다니는 데 쓰는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문을 배워서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자기가 구원받고 영원히 쓰기 때문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 등록금이 아깝지 않게 공부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학교를 안 다니고 선생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은 그들에게 말해 주기를, “캠퍼스에 가면 생명들이 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섭리사를 뛰고, 생명을 전도하면 된다.” 합니다. ◎ 캠퍼스를 뛰는 자들을 보면, 섭리사도 뛰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니 정신없이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4개, 5개씩 맡아서 뛰니, 학생인지, 교역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임무를 두 가지를 맡았든지, 세 가지를 맡았든지 젊을 때 행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울며 돼지 쓸개를 먹을지라도 지금 젊을 때 행해야 됩니다. ◎ 하나님께 투자해야, 나을 것이 있습니다. 선생도 젊을 때 무조건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것>도 휘날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 선생은 늘 <하나님께 투자하며 뛰고 달리는 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니 그 조건으로 축복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꼭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하시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섭리사>는 모두 축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축복’입니다. 결방살이를 하도 많이 해서 교회를 사는 것이 최고 소원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은 전국에 성전을 세워 나서 이제는 ‘부자’가 됐습니다.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 이제 <성전>도 해결됐고, <주>도 나와서 뛰고 있으니, 지금은 모두 ‘주와 같이 뛸 때’입니다. 조은 목사는 선생을 보고 지금이 최고 전성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중하니, 뛰고 밀어붙이면서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와 같이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캠퍼스는 만 명을 향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꾸 모이고, 멋있는 이벤트를 만들면, 생명들이 물이 쏟아지듯 밀려옵니다. 이같이 하면서 ‘무리 전도’를 해야 됩니다. <독수리>를 붙여 놓으면, 바로 됩니다. ◎ 월명동 캠퍼스에 끼어들듯이 전국 캠퍼스도 그와 같이 주가 끼어들어서 계속 누비며 작전할 테니, 부지런히 주와 같이 행하기 바랍니다. <지금>이 ‘과거에 기다리던 그 때’입니다. <지금>이 중합니다. (알겠지요?)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놓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 닥쳐서 지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것을 계속 넣어 주면서 뛰고 달리며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캠퍼스 종강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이 지켜 주셔서 생명도 구하고 관리도 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하며 뛰고 달리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여건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오늘 말씀을 들은 한국을 중심한 온 세계의 모든 캠퍼스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사랑과 주의 사랑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토록 힘 있게 능력 있게 행하여, 지금을 항상 놓치지 않고 행하는 그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기를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과거는 지나갔다. 행할 일은 ‘지금’ 하는 것이다. 항상 현재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과 함께 말씀해 주었다.
2. 지금 온전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이 겪어 봤지만, 항상 할 일을 예비해 놓고 단단히 준비를 해 놓고 기다렸다가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할 일들을 해야지,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3. 큰 행사, 혹은 민족적인 경기나 큰 단체의 경기를 볼 때도 ‘현재’에서 미래라는 ‘지금’을 놓고 준비하고 예비했었다. 그날을 맞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하도록 준비하고 예비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항상 현실을 잘 감당하고 충분히 해내려면, ‘과거’라는 사전에 뛰고 달리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4. 구체적으로 보면 인생으로 논하든지, 철학으로 논하든지, 의학적으로 논하든지, 종교적으로 논하든지, 어떤 논리로 논할지라도 ‘뇌’의 시동을 꺼 놓고 있으면 ‘지금’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맞고 행할 수 없다. ‘뇌의 시동’이라는 것은 ‘생각’이다. 생각의 시동을 꺼 놓고서는 지금 현실을 제대로 맞을 수 없다.
5. ‘뇌 시동’, 곧 ‘생각이 켜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가 시동만 켜져 있으면 안 된다. 가야 한다. 그와 같이 생각이 켜져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생각의 능력이요, 기술이요, 능통함이요, 추진력이요, 계획이요, 정신력이요, 재치요, 지혜와 판단들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해야 된다.
6. 세밀한 계획 단계에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추진해야 된다. ‘추진한다.’는 것은 자꾸 이리저리 해 나가는 것이다. 추진해 놓으면 행하는 자들이 유능하게 열을 내면서 뛰어야 한다.
7. 주님의흰돌교회는 뭉쳐서 모두 열심히들 한다. 가정국도, 청년부도, 대학부도 각 부서들이 된다. 안 뛰면 옆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같은 한 덩어리의 기계와 같아서 같이 안 뛰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뛰어야 된다.
8.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한다. 물론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즉석에서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큰일들은 계획하고, 연습하고, 예행연습도 해 보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 봐야 된다. 큰일은 작게 축소판으로 해 봐야 된다.
9. 학자들이나 시험적인 역사를 실행하는 자들, 과학자들을 보면 작게 축소판으로 계속 실험해 본다. 축소판으로 해 봐서 되면 확대판으로도 된다. 섭리역사 가운데 배운 것들 중 하나는, 첫 번째가 ‘축소, 확대’다. 축소시켜서 해 보고 100% 되면, 확대시켜서 해도 100% 된다. 그림 그리는 것도 축소시켜서 그려 보고, 그대로 확대시켜서 그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먼저 축소시켜서 개인이 해 보고, 그것이 되면 이제 확대시켜서 하면 된다. 시험관 아기들도 축소시켜서 시험관에 해 보고, 실제 확대해서 자궁에 넣어서 키운다. 이와 같이 축소시켜서 미래를 위해 해 보고, 이 중에 확대시켜서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감당하고 지금 중한 것을 감당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0. 신앙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신앙 세계의 영원한 것을 두고 살아오고 있고, 세상을 위해서도 육신이 있는 한 존재시키기 위해 살아오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때 더 기술자가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11.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인 세계를 잡고 하는 자들이 현실에서도 더 많이 뛰고 달린다.
12. 흔히 보면 세상에서만 승리하고서 “승리했다.”라고 모두 큰소리치는데, 그들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잠깐의 세계를 사는 자들이다. 그들은 ‘영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 비해 아주 적고 적은 삶을 산다. 백 분의 1도 안 되고, 천 분의 1도 안 되고, 만 분의 1도 안 되고, 1억만 분의 1도 못 살고 있다.
13. 따져 봐야 충격이 있고, 따져 봐야 놀란다. 왜? 육신만을 위해 살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고 해도, 영원한 세계까지 두 가지의 삶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1조 분의 1도 안 되게 사는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큰소리 팡팡 치면서 산다.

14.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육신의 세계는 영계에서 실험해 봤을 때 ‘칼날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것’과 같다. 겨우 그 시간을 살고 가는 것이다.

15. 너무 작은 것은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확대시켜 봐야 하듯이, 인생 일생 100년은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게 짧으니 확대시켜서 봐야 한다. 이는 마치 칼날 위로 지나가는 실탄, 총탄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이다. 그 시간에 겨우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구해 주세요.” 하는 시간밖에 안 된다. “하나님!” 하고 “나 좀 살려 주세요요! 나 좀 도와주세요요!” 하는 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예 “너희들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한 것이다.

16. 상당히 기나긴 일생의 시간 같아도 하나님과 일체 되어서 살아야만 그 순간을 가지고 겨우 자기 구원하고 간다.

17. ‘지금’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놓고 설명하고 있다. 확대시켜 봤을 때 ‘지금’이 ‘일생’이고, 축소시켜서 보면 ‘지금’이 ‘하루’다. 일생을 축소시키면 ‘하루’다.

18.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따라갔다.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 주다.” 하고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뛰어 도망간 곳이 있다. 벌써 증거하러 간 것이다. 주는 증거하러 간 것을 알고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마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같이 입이 부르르도록 외쳤다. 고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주를 알고, 믿고, 행하게 되었다.

19. 그와 같이 시대 세레 요한이 시대를 외치며 특히 10년 동안 전초를 해 놓았다. 그래서 주는 담아 놓은 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 것은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직접 육신 쓰고 와서 행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그렇게도 외친 것이다.

20. 현실을 멋있게 맞이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요한이 외치고, 가르치고, 만드는 것’이다. 옛날의 요한은 바깥으로 돌았지만, 지금은 아예 애인을 요한들로 세워 놓았다. 절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극적으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자들을 요한들로 세웠다. 하나는 형제 쪽에서 세우고, 하나는 사랑의 세계 핵심자를 세워 놓았기에 꿈쩍 못 하고 100% 행한다.

21. 가정의 부인을 보면, 하루 종일 나가서도 항상 남편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자식 자랑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섭리역사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세레요한으로 세운다. 그러니 세레요한은 떨어질 수 없이 100% 틀림없이 역사를 펴 나간다.

22. 하나님은 하나님의 애인 중에서 증거자를 세웠다. 그러니 오죽 잘하겠느냐. 그 세계를 훤히 알고 세밀히 아니 마음 놓고 증거하고 이야기한다. 그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듣는다.

23. 외국에서 선생을 본 사람은 딱 한 명 외에는 없었다. 그래서 선생이 없는 기간에 그것을 충분히 메꾸기 위해 주를 증거하라고 본 자를 보냈는데 그것을 몰랐다. 그래서 모두 곤고함에 처하게 되고, 큰소리치며 이놈 저놈이 나왔으나 안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한 것과 같이 요한을 통해 왔지만 몰랐다.

24. 모르면 고통받고, 알면 그만큼 고통을 받지 않는다.

25. 10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온 자를 통해 외치게 하였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그 사랑을 베푸시듯, 사랑하는 자를 보내어 시대에 10년 동안 외치게 해 주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외치냐? 왜 저렇게 뛰냐? 왜 저렇게 노래하냐?” 하며 말이 많고, 무식한 짓들을 다 했다.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흰돌교회가 딱 뭉쳐서 받쳐 주어 요한의 역사를 한 것이다. 그래서 각종 사역자들이 역사를 하지만, 특히 그곳에 계속 말씀을 퍼붓는 역사를 하게 되었다.

26. 하나님 앞에 절대자가 하나 있어야 한다. 이는 메시아다. 메시아는 배웠으니 안 믿을 수가 없다. 어려도 배우고 나

니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보였다. 나이로 볼 때는 세상에 비해 어린아이였지만, 알고 보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로 보였다. 고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해 나갔다. 이는 조은 목사도 마찬가지였다.

27. 그 시대의 요한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애인을 기르듯이 계속 가르쳐 주고 말했다. 애인들이니 말씀을 전해도 씨가 잘 먹힌다. 다만, 애인 시대에 형제급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했던 것이다. 같은 애인급으로 살아야 한다.

28. 예수님의 설교를 연구해 보고 분석해 보면, 순전히 가르치는 설교였다. 모르니 가르치는 것이다. 설교에도 여러 가지 설교가 있다. -이를 ‘설교 설법’이라 한다. 비유 설교, 간증 설교, 역사 설교 등 각각 있지만, 예수님은 특히 ‘가르치는 설교’를 많이 했다. 안 가르치고는 설교해도 깨닫지를 못하니 가르친 것이다.

29. 세례요한은 항상 먼저 와서 외치는데, ‘시대의 요한’은 ‘남’이 아니라서 주의 뒤에 나온다. 남들이 할 때는 다 실패했다. 그러나 섭리사 안에서 절대성을 가지고 하니 다 해결이 되었다. 마지막 역사는 100% 승리하는 역사로 예정해 두었다.

30. 40년 휘날리는 역사가 ‘월명동’과 ‘주님의흰돌교회’ 두 군데에서 이루어진다. ‘주님의흰돌교회’를 확대하면 ‘서울’이다. 그래서 “월명동을 중심하면서 서울을 누비자.” 하고 마지막으로 40년 역사의 뚜껑을 덮게 되었다.

31. 하나님은 시간과 초를 다투면서 역사를 짜 놓고 보낸 자로 하여금 딱딱 지키게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살고 지나간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는 사람을 데리고 하신다.

32. 하나님은 칼날같이 행하고 지나가신다. ‘빠른 구름’을 타고 지나간다. 기성에서는 ‘저 하늘의 빠른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는 너무 모르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이다. ‘빠른 구름’은 ‘하나님이 보낸 자’로, 그가 빨리 뛰는 구름이 되어서 나온다. 깨끗한 것이 구름이다. 흔히 ‘먹장구름’이라고 하지만, 먹장구름도 실상 깨끗하다. 비가 하도 실력 있어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물 덩어리는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구름 위에서 휘날리며 뛰는 것이다.

33. 하나님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신지 모른다. ‘느린 꼴을 못 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빠른 하나님도 뛰신다.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려면 ‘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대로 뛰면서 달려야 된다.

34. 증거자가 그리도 증거하고 외친 것이 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세의 역사를 이루면서 미래의 준비를 해 놓은 것이다. 항상 두 가지로 한다. 성령집회를 하고, 선생이 말씀을 주며 휴거 역사를 맞이해서 행했다. 그때 해 놓은 것이 미래에 주가 나타나는 데에 실제 발판 역할을 하도록 준비를 해 놓는 것이다. 그 터전 위에 주가 나타나서 마지막 휘날리는 역사의 40년 종지부를 찍게 된다.

35.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계속 돕고 역사하시듯, 이 시대도 그와 같이 가고 있다. 그토록 외쳤던 과거는 지금 하기 위해서였으며, 지금을 위해 그리도 외치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놓고 발판을 깔아 놓으신 것이다.

36. 핵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기간에 모두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하나님과 일체 되고, 성령과 일체 되어야만 할 일이 많은 것을 안다. 일체 되면 상상도 못 한 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행해야 되니 바빠서 시간에 쫓겨서 정말 미친다. 일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로 할 일이 없다.

37. “할 일이 없어서 쉬어야 한다.” 하는데, 쉬는 것도 일하고 쉬는 것이지, 그냥 쉬는 것은 합당치 않다.

38. 섭리사가 이같이 역사해 온 원인은 지금을 위해서 그렇게 해 온 것이다. 물론 과거 때에 해서 휴거도 이뤘다. 그러나 휴거됐다고 휴거가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면서 할 일이 많다. 계속 사랑받는 시간이요, 계속 축복받는 시간이요, 계속 지난날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고, 계속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그 일을 더 완전하

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39. 그 차원이 끝도 없다. 마치 1m 두께가 되는 책을 갖다 놓고, 밑에서 한 장씩 세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 차원이 천층만층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끝이 없다. 죽어서도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혼들이나 영들은 계속 기어 올라가야 한다.

40. 완성된 영들은 황금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실컷 자기가 원하는 일도 한다.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희망에 차서 계속 이루며 간다. 원하는 것을 행하며 계속 가니 ‘연속되는 기쁨과 희망의 역사’다.

41. 욕신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계속은 못 한다. 나중에 가서는 지겨워서 연속하지 못한다. 진수성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첫 숟갈만큼 맛있지 않다. 계속 먹으면 마지막 숟갈이 제일 맛이 없다.

42. 운동도 계속하고 싶다가도 한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더 하는 것이 고통이다. 모든 만사가 그러하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계속해도 지겨운 것이 없다. 선생부터도 ‘축구를 한다. 배구를 한다.’ 했을 때, 어느 한계까지 가면 더 하고 싶지도 않고, 네트나 코트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 때는 “가자! 이제 끝났다!” 하고 끝내는 것이다.

43. 우리는 환상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다. 누가 크다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를 전도해 놓아도 주 앞에 기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다. 모두 전도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44. 필요성을 깨달아야 현실을 감당할 수 있고, 현재를 중하게 살아갈 수 있다. 탁월한 정신력, 실천력을 항상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가치 있게 일을 하게 된다.

45. 연습은 반복이요, 복습이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6. 성령의 감동을 때마다 주어도 자신이 없고 기술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하라.” 하고 감동을 주셔도 기술이 없고, 자신이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행하는 실천력이 없으면 못 한다.

47. 기술이 없든지, 자신이 없으면 즉시 해지지 않는다. 노래 가운데 어떤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다. 때가 와서 성령께서 지시하고 이미 가사는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기어코 기어 올라가서 10번, 20번씩 반복하면 결국 소리가 난다. 순간의 기회에 즉시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만다. ‘능통한 예비’와 ‘날썹 비호같은 행동’이 현실을 맞고 지금을 제대로 맞고 행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승리의 비법>이다.

48. 현실은 마치 자기 애인과 같다. 자기 애인을 맞아라. 맞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받아 준다. 그러니 현실을 잘 파악하고, 현실의 심령을 알고, 현실의 심정을 알고, 현실의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된다.

49. ‘사전의 구상과 세밀한 계획’이다. 그래야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할 일이 마치 하늘에 뜬 흰 구름이 태풍에 밀려가듯 거침없이 진행된다.

50. 하나님은 “지도자들아, 부지런히 행하여라. 안 뛰고 안 하면 지금은 자기뿐 아니라 따르는 자가 못 하게 되니, 실패를 해도 너도 나도 모두 실패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다.

51. 어제 그렇게도 귀하게 행한 일들은 다 지나갔다. 어제 일은 벌써 과거로 끝났다. 노래도 나왔다. ‘지난날은 끝난 것이다.’ 오늘 다시금 새로운 날을 맞았다. ‘오늘’이라는 지금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지나가고, 새벽의 일들, 오전과 오후의 일들, 밤에 해야 될 일들이 하루에 4번 지나간다. ? 새벽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네 번으로 나뉘어 ‘지금’이라는 귀한 때가 지나가고 있다.

52. 생각하고 성령과 일체 되어 살면 지금 할 일이 정말 많이 지나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령의 눈을 떠야 보게 되고, 성령의 귀가 열려야 듣게 되고, 성령의 마음이 열려야 성령의 생각을 적적 받아서 깨닫고 행하게 된다.

53. 지난날 바라고 원하던 것, 때가 되어 받고 행할 때다. 정신, 생각을 집중하여 행하여라. 그래야 매일 얻는다.
54. 스스로 조심하여 행하고, 아는 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대를 모르니 말 좀 해 주고 가라. 자기의 희망의 앞날에 씨를 뿌려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55. 지금 할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지금 입장 곤란해도 꼭 해 버려야 된다. 꼭 씨를 뿌려야 후에 반응이 있게 된다. 할 말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말하니 지금 들어야 된다. 지금이 중하다 하지 않았느냐.
56. 지금 할 일을 확실하게 행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 미래에 확실하게 된다.
57. 지금 시원찮게 해 놓고 나면 다음에 이루어져도 시원찮게 이루어진다. 선생은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운동할 때도 ‘지금이 중요하다.’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한다. 불이 날아오는 지금이 중요하다. <불을 잘 넣는 비법> 중의 하나는 ‘지금’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58.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서 아주 강한 자가 있고, 복습에 강한 자가 있다. 연습할 때 잘하는데 실전에서는 잘 안 되는 경우는, 현실에서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은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 “항상 편하게, 당황하지 말고 게임을 이끌어 가라.” 하고, “하나하나 몇 대 몇인지 외우면서 게임을 이끌어 가라.” 하고 코치한다. 당황하지 않고 가장 침착성 있게 할 때 가장 멋진 자기의 품도, 기술도 나온다. 당황하면 안 나온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이라는 그 세계에 대해 하나하나 논리, 그리고 질서, 그리고 이치에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듣고 행함으로 ‘지금’이라는 세계를 잘 파악하고, 충분히 파악하고, 충분히 상대의 말도 들어 보고, 충분히 자기주장도 하고, 충분히 이것저것 모두 하라고 했습니다. 저울로 달아 볼 것, 그리고 줄자로 센티미터를 재어 볼 것. 이렇게 해서 모두 판단하며, 또 하나는 분석을 확실히 해서 진짜 금덩어리인가, 몇 개인가 알아볼 것.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세례요한들은 긴가민가하며 쳐다보고, “이것으로 만족한다.” 했는데,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한들은 같이 참여하며, 같이 애인이 되어서 같이 뛰고 같이 먹고 같이 즐겁습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40주년 역사의 마지막 뚜껑을 덮어 가고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요한이 한 대로 예수님 때도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대도 요한이 한 대로 되어 승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거칠게 다듬어 놓으면 도대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길 닦은 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모두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종, 각양각색의 자기의 사명대로 모두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며 행하게 축복하시고, 능통하게, 능력 있게, 판단력 있게, 그리고 힘 있게 모두 증거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영원하심이 성령과 함께, 성자와 함께 절대신으로서 우리를 늘 지키시니, 우리가 하기만 하면, 완벽하게 하기만 하면 역사는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 왔으니, 앞으로도 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주일도 “지금이 중하니 지금 중요하게 하라.” 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뭐가 중요하나 보니까 40년 뚜껑을 덮는 시간입니다. 이를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퍼부어 주시고, 행사를 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모두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것을 보이시고, 불안한 자에게는 불안함을 보이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을 보이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겸손을 보이시며 역사를 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지혜와 능력과 판단과, 그리고 기술과 능통함과, 그리고 힘과, 그리고 성령과 일체 된 생각을 더해 주시고, 성령과 더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40년의 마지막 역사를 보내는 우리 섭리사 위에 임하여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한 가운데 미련 없는 40년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멋있게 매듭짓게, 이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사랑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민족과 세계에 함께해서 항상 평화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이 중하니 ‘지금 잘하기’다. 지금 하는 일도 중하니 ‘할 일을 하나하나 이상 없이 꼭 잘하기’다.
2. 지금이 중하다는데 잘 모른다.

3.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계속 우리 앞에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못 겪으면 잘 모른다.
4. 그때 현실에서 하는 일을 열심히 착오 없이 하는 것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행하신다. 지금 성령이 너에게 행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모르면 일체가 안 된다.
5. ‘지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다. - 지금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 지금 너에게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 빨리빨리 행할 것을 행하여라. 그러나 본인이 준비 안 했으면 못 한다.
6.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극진해야 되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눈이 극진해야 되고, 주를 쳐다보는 마음이 일체 돼야 된다.
7.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금이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옆에서 따라다니며 계속 역사해 오셨다. 지금은 벌써 지나갔다.
8.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특히 주를 쓰고 행해 오셨다. 주를 쓰고 준비되고 예비된 자리에 가서 계속 말씀을 외치고, 모든 숨은 것들을 밝혀 주며 중한 집회들을 계속하고 왔다.
9. 하나님이 ‘지금이 중요하다.’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잘 생각하라. 잘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날그날, 40주년 되는 해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매듭짓는 일, 뚜껑 덮는 일’을 하신 것을 말한다. 뚜껑 덮는 일을 ‘극적으로 신앙이 준비되고 예비된 곳’에 가서 행하셨다.
10. 하나님은 중하다고 해 놓고, ‘주’를 통해서 핵심적인 일들을 행하셨다.
11. 금주의 핵심은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말할 것이 있고, 행할 것이 있다.” 이다.
12.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 특히 지상 역사 40주년 이 기간에 마지막 뚜껑 덮는 일을 행하셨다. 섭리의 수도권, 생명의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40년의 뚜껑을 덮는 일을 하시고, 또 월명동은 역시 일하는 데 매듭짓는 일을 또 행하신다. 영하 15도가 되어도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때그때 할 일을 이와 같이 하심으로 40주년 뚜껑을 덮으셨다. 현재 할 일이 이와 같이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영하 14도가 되나, 늘 지금 할 일이 귀하게 닥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13.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다.’ 하고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쳐다보아라. 주를 쳐다보아라. 하나님도 성령도 중한 일은 ‘주’를 통해 행하셨다. - 그것이 바로 시대의 답이었다.
14.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니까 중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시니 중요하다.
15. 지금 할 일을 ‘꼭 하기’다. 어떤 사람이 목적인 물건을 사러 시장을 지나갈 때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기’다. ‘찾기’다. 많은 물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합당해야 하고, 가짜 물건에 속지도 말아야 하고, 손해 가지 않게 값에 속지 말고 잘 사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건 사러 간 것이 잘한 것이다.
16. 지금 이때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기’다. 할 일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있다. “찾아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 줄 것이다.” 하신 말씀에 의해서 찾고, 없으면 문을 두드리서 알아보고 하듯 해야 된다.
17. 찾고서 그 일을 ‘잘하기’다. 사람의 머리는 둔하고 모자라고 약하고 차원이 낮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산다. 그러나 절대자 하나님, 성령님, 주와 일체 되어 행한다면, 능히 모든 일을 알고 같이 행하여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래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삼위가 일일이 함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
18. ‘우리끼리 하면’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선생을 빼놓고서는 제대로 한 일이 없다. 신부들이 해 놓은 것을

신랑이 와서 보고서 만족한 적이 없는 격이다. 이는 한쪽만 했지, 다른 한쪽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신랑이 할 일이 따로 있다. 고로 어디를 가든지 해 놓은 일이다. 주가 와서 직접 더 하고 다시 하는 것이다.

19. 본인들이 신앙에 불붙어 열심히 해 온 것은 본인들의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 차원의 것이다. 아무리 해도 그 단계 밖에 안 된다. 다 했다면 주가 올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다.

20. 지금 개인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도 보고, 섭리사적으로 크게 할 일이 무엇인지도 찾아라. 하나님 방법, 주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21. 새 역사와 주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일반 사람과 구시대와는 다르다. 생각이 다르고, 마음도 행실도 다르다. 구시대는 기다리는 역사라 주가 와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새 시대는 주가 이미 와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생각도 다르고 행실도 다르다.

22. 시간을 귀히 쓰고 깊이 깨달아야 된다. 며칠 기도하면 벌써 할 일이 눈에 띈다. 깨닫고 보면 할 일이 너무 많고, 깨닫지 않고 보면 할 일이 너무 없다.

23. 우리는 시대를 알고 깨닫고 살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새 역사가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기다린 역사를 펴고 있어도 시간을 볼 줄 모른다.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주가 와서 세상의 일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

24. 이는 상식적으로 봐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오전 때다. 오후 때다. 이때가 되면 이것을 한다. 저때가 되면 저것을 한다.’ 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선포해 뒀는데 기독교는 시간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다.

25. 예수님 때도 “때를 모르느냐?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느냐?” 하고 그리도 말씀하셨다. 옛날에는 시계를 안 차고 다녔다. 그러나 시계는 있었다. ‘해’가 시계였다.

26. ‘때’는 무엇을 보면 아는지, ‘시대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시대에 되어진 것을 보라.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피면 봄이 온 줄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 무화과나무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다. 누가 꽃나무 밑에 난로 갖다 놓고 피운 것이 아니다. 때가 되었으니, 시대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27.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 놓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 여건을 좋게 만들어 준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신 표’를 내는 것이다. ‘주가 오신 표’를 내는 것이다.

28. 지금도 주가 왔기 때문에 민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냥은 안 된다. 주가 오지 않았을 때는 나라가 무서운 두려움 속에 있느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민족의 운명이 싸움의 운명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했고, 군인들은 직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했다. 싸움은 잘하나 못하나 하면 서로 다친다.

29. 이와 같이 이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주가 다시 왔다.’는 것이다. 주님이 말한 대로 그 시대대로 외친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다. 지금은 주가 와서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있다.

30. 섭리 나라 모두 회복되듯이, 민족도 회복시키고 평화롭게 해 준다. 그 전에는 섭리 세계 전체가 평화롭지 못하고 서로 화평치 못하고 울고 싸우고 했다. 그리고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북한같이 쳐들어오고 ‘곧 죽인다. 곧 없앤다.’ 했다.

31. 이제는 주가 왔으므로 그런 것들이 잔잔해지고,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 치는 듯한 역사가 일어났다. 방송을 안 좋게 내보내고 했는데도 오히려 좋아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주도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며 행하

고 계시다. 그러므로 섭리의 나라가 회복되었다. 부활을 시킨 후 4개월 동안에 회복을 시켰다. 이제 섭리 나라는 전국, 세계가 다른 관을 갖게 되었다.

32. 주가 왔을 때는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된다. 어떤 때는 기도를 시켜 놓고 보면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를 한다. 주가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만 쳐다보고 성자만 쳐다본다. 주께 기도를 하라. 신부 앞에 신랑이 왔으면 얘기하면 된다. 얘기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해도 또 직접 듣게 해야 된다. 그래야 감동이 되어 그날 기도를 듣고 이렇게도 해 주고 저렇게도 해 준다.

33. “기다리는 주님이 왔으니, 오늘은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청산유수로 하나님께만 기도하니, 옆에 있는 주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기도대로밖에 안 해 주신다. 프로그램을 싹 바꿔서 오는 것이다. 기도는 주께 직접 해야 된다.

34. 누군가가 말하길, “전도 열심히 하는 자가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다 죽어 가고, 호스를 빼면 죽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호스도 시간 차이다. 불과 아주 핵적인 순간의 시간 차이인데, 이때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다. 그때에 선생이 “알았다.” 하고, 2~3분 있다가 ‘죽느냐 사느냐’의 마지막 시간이 닥쳤다. 결국 그 시간에 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다. 심부름하는 자가 말하길, “선생님,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했다.

35. 또 하나는, 누가 ‘전에도 간절히 열심히 행사를 했었는데, 오늘은 주가 직접 오셔서 이와 같이 행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주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고 확 깨달음이 왔다고 했다. 울컥하면서 가슴이 뜨끔 하는데, 바로 옆에서 주가 “너 지금 빨리해야 된다. 빨리 가서 춤 춰.” 했다고 했다. 멍하게 있으니 옆에서 조은 목사가 “너 지금 춤 추라고 주님이 말하신다. 지금 너도 나가서 춤춰.” 했는데, “네. 네.” 하다가 지나갔다고 했다. 그래서 선생이 말하길, “너 왜 춤 안 뛴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에게 깨우쳐 주고, 육신을 쓴 보낸 자를 통해 직접 말한 것이다. 순간의 때다. 순간 내가 말하는 것을 지켜 행해라. 그러지 않은 사람은 후회한다.” 했다. 주가 이같이 말을 해도 순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36. 선생은 뭘 하라 하면 즉시 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 재밌으신가요?”, “응, 재밌어.”, “성령님, 지금 제가 시키는 대로 하니깐 좋아요?”, “좋다.” 이같이 즉시즉시 하면서 바로 대화를 해야 된다. “제가 하니깐 기분이 어떠신가요?” 하면 “나도 같이 하고 있다. 네가 기쁜 것보다 천 배, 만 배 더 기쁘다. 신은 기쁨도 더 크고, 깨달음도 더 크고, 느낌도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이다.” 하신다.

37. 또, 연말 시상식 상장을 다 써 주고 불나게 내려오는 길에, 차에서 잠들어 자다가 잠을 깨고서 운전수에게 “지금 어디냐?” 하니 “죽암휴게소 직전, 2분 전이에요.” 했다. “이제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왔냐?” 하니, “죽전과 죽암이 다릅니다.” 했다.

38. 죽암휴게소를 직전에 두고 운전수가 ‘주여. 지금 주님이 죽암을 들르고 싶은지요? 2분밖에 안 남았으니 들르고 싶으면 깨시지요.’ 하고 기도를 하자마자, 선생이 쿨쿨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고 물었다고 했다. “주는 역시 주무셔도 답을 다 주시네요.” 했다. “나는 자지만, 역시 혼은 안 자고 있으니 깨울 수 있고, 성령이 깨울 수 있으니 그러하다.” 하였다.

39. 아무리 주가 옆에 있어도 답을 안 주는 자가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부르는 자에게는 답을 안 주신다.

40. 감자튀김을 천 개를 줘도 먹을 수 있는데 한 개를 줘도 못 먹는 원인이 무엇일까? 광범위한 문제 같지만 범위가 아주 좁은 문제다. 옆에 있던 자에게 감자튀김을 먹으라고 주니 잘 먹었다. 나중에 감자튀김을 코로 넣어 주니 하나도 먹을 수 없었다. 이같이 말씀도 잘못 넣으면 못 먹는다. 정확하게 넣어 줘야 싹싹 들어간다.

41. 또 서울에서 마전으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선생이 “저기 대둔산이 보인다.” 하니, 그동안 아무도 못 봤다고 했다. “저기 보이지 않느냐?” 하니, “정말 독수리눈이네요.” 했다. “저기까지가 약 12km 정도 된다.” 하니, “독수리가 12km 까지 본다고 하는데, 맞네요.” 했다. 그 자리에서 재 보니 12km 500m가 나왔다. 이같이 서로 알아야 대화가 된다.

42.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며 주가 순간순간 역사하며 행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지금이 중하지 않느냐? 지금 주가 와서 하나님이 그를 쓰고 가는데, 주가 앞에 있어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찾고 보이지 않는 신들만 부르고 있느냐?

43. 지금은 전과 판국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모두 '전초 하는 역사'였으나, 지금은 '전초 한 것을 행하는 역사'다.

44. 그동안 “내가 나가면 교역자들 역시 판국이 달라진다. 한 번도 설교를 못 할 것이다. 이때에 부지런히 최고의 설교를 하여라.” 하고 이미 편지했었다. 그때에 설교만 잘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증거를 하는 조은 목사같이 성령으로 불 붙여서 뒤집어 낚아야 했다. 그래야 그 터전 위에 가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며 준비를 해 놓은 터전 위에 실제로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주를 쓰고 말씀하고 있다.

45. 조은 목사가 말하길, “선생님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계시네요.” 했다. 증거자는 바로 아니 바로 얘기해 버린다. 무엇을 하더라도 선생이 휩쓸어 버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

46. 선생과 같이 축구 한 실업 팀 선수들이 “목에서 피 냄새가 난다.”라고 했다. “피 냄새가 날 정도로 극적인 단계까지 하는데도, 선생님을 못 받쳐 주겠네요. 주의 신들메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했다. 국가 대표 선수들, 완전히 프로 선수들인데도 그러했다.

47. 지금이 중하니 발판을 잘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발판이 없으면 못 뛰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발판을 만들어 놔서 여기도, 저기도, 월명동에도 와서 뛰는 것이다.

48. 발판을 지금 만들고 있으면 당장 할 일을 할 수 없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놔야 벽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고,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기지, 생땅에서는 기둥을 세울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도 40년 역사의 뚜껑을 덮는 일을 하는 것은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49. 주님의환돌교회에 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단상에서 들어가지 못 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지난날 조은 목사가 새벽 5시에 교회에 오면 저녁 때, 그다음 날까지도 잠을 못 자고 있었다고 했다. 주는 발판을 닦은 대로 해 준다.

50. 한번은 미리 캐어 분을 떠다 임시로 심어 놓은 소나무를 찾으니 없었다. 주인이 산에 집 짓는 것을 허가받고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팔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값이 삼천만 원이라고 했다. “그것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한 나무에 삼천만 원씩 하느냐? 너무 비싸다.” 했더니, 계속 작업을 해 낚았다고 했다. 예전에 전주 쪽에 소나무를 4년 전에 분을 떠 낚았는데도 죽어서 못 가지고 온 적이 있어서, ‘너무 큰 나무는 분을 떠 놔도 죽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도대체 옮길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니 주인이 다른 자에게 1억 오천에 팔겠다고 했다. 알겠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후에 그 나무를 사러 가던 사람이 사고가 나서 못 사게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나무다! 하나님이 상황을 트시는 것이다. 바로 계약하자.” 하고 사게 되었다. “추우니 내년 봄에 가지고 오자.” 하니 주인이 겨울에 집을 지을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캐 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결국 트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주 근방에 있던 소나무는 나무뿌리를 끊기 전에 이미 병충해로 죽었던 것이라 했다. 고로 ‘바로 들어오는 나무도 뿌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병충해 예방을 잘해야 하는구나. 아주 강력하게 예방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51. 이와 같이 지금은 모든 판단을 잘하고, 계산을 잘하고, 전부 다 잘해야 할 때다. 신앙도 똑같다. 신앙 세계도 판단을 잘해야 된다. 옮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옮기기 전에 ‘신앙의 병’으로 죽는 자들이 있다. 혼자서 믿지 못하는 병,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병으로 죽는 자들이 있으니, 병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병을 위해 기도를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면 되는데, 관리자가 그 병을 감당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꼭 말하면서 확대시켜서, “섭리사에 크게 한 일들을 깨닫고 알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동안 역시 지금이 중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틀고 저렇게도 틀면서 한 일이 한두 번이냐?” 했습니다. 많은 것을 그렇게 해 오고, 월명동 돌을 사 올 때도 하나님의 뜻이면 계속 틀어 버리고 또 틀어 버리고 해서 행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곳은 일하는 걸로 뚜껑을 덮고, 저곳은 신앙의 뚜껑을 덮으며 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지금 중하다고 해 놓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중하다. 너희들 쓰고 내가 한다. 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나 하나님이 보낸 입술을 통해 말씀하고, 보낸 자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행한다. 그것이

중한 것을 모르느냐? 깨닫고 모두 행하도록 하라.” 하십니다. “분별하고 식별하고 온전한 일로 행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지금 중하니 하나하나 중하게 행함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과 같이 늘 의논하며 행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섭리와 모든 자에게 함께 하여 생명을 주관하시고, 아픈 자를 다스리시며 건강케 하시고, 죽음에 가는 자들을 이끄시며 붙잡으시고 하시는 하나님 의 그 능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주로 인해 함께하여, 지금 이 나라를 평화로 회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조화냐? 주가 와서 그를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를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만큼은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라. 주가 와서 그리한다. 모든 자들아, 알지 못하는 자들아, 기성들아, 주가 와서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너희는 깨닫지도 못하느냐? 나라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시키는 시간인데, 너희들이 이곳에 와야만 회복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섭리사에 주가 옴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병든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화평치 못한 세계를 화평하도록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살아나게 만들고, 육적인 세계의 꼭 죽을 자들이 살아남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이 죽은 자들, 죽을 자들, 힘든 자들, 사명권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리므로 지금이 중하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피거든, 주가 온 줄을 알아라. 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말씀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의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시대는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고 만발하게 되면, 주가 온 줄을 알아라. 평화의 세계가 자꾸 일어나면 주가 온 줄 알아라. 평화의 왕이 온 줄 알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낸 육신 쓰고 오셔서 평화롭게 다스리고 주관하고 행하십니다. 신랑이 왔으니 모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참 중하니, 기도들 좀 열심히 하라 하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모두 또 기도를 했으니 은혜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또 회복이 잘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까지 오늘부터 또 남은 30일까지 기도를 계속하며, 새로운 해를 맞이까지 우리가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20일 동안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예리하고 세밀하고 온전히 알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지금>이 중하다. 그 순간, 할 때가 중하니 너희가 지금 하는 일을 잘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할 일을 행하신다.
2. 금주에 중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다 해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행했다.
3. 하나님이 ‘지금이 중하다.’ 하시고서 무엇을 행하셨나 보았다. <섭리역사>는 집을 다 짓고 뚜껑을 덮듯이 전초 한대로 뚜껑을 덮는 일을 하였고, 각종 예상치 못한 일들을 모두 결제내리고 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월명동에서는 생각지 않은 나무들이 들어와서 영하 14도의 추위 속에서도 심었다. 원래 겨울에는 나무 심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묵였던 것이 이제 풀려서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지 땅은 역시 ‘일’로써 마지막 뚜껑 덮는 일을 하게 되었다.
4. 어제 중한 것은 어제 지나가고 끝났다. 어제 못 했으면 그냥 지나가서 큰일 날 뻔 했다. 이리므로 하나님은 금주에 시범으로 ‘지금이 귀하다.’ 말씀하여 지금이 중한 것에 대한 인식을 시키시고, 잠을 깨고 행하게 한 일들이 그렇게도 많았다. 결국 그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하나 행할 수 있었다.
5. ‘지금이 중하다.’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사건이었다. 고로 이 말을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고 살아야, 하나님도 마음 놓고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할 일을 해 주시며 행하신다. 그래야 우리들도 육적으로 세상 할 일들을 그때마다 행할 수 있다.
6. ‘지금 중하다.’이 말은 그때 중심할 것을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그때에 해야 될 일을 다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가면 중한 것을 빠지고 간 것이다. 어떤 일을 안 하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하지만, 어떤 것은 보다 이상적인 삶이 되지 않는 것도 있다. 할 일을 다 해야 조화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사람들이 볼 때 감탄도 하고 좋아도 한다.
7. 자연성전을 꾸밀 때, 그때의 처지를 볼 때는 힘들다. 영하 14도 되는 날씨에 소나무를 심으면 가지가 얼어서 특특

부러진다. 그러나 지금이 중해서 지금 가져다 댔는데 빨리 안 심으면 뿌리가 얼어버린다.

8.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다. 환경과 모든 여건상 어려움이 있지만, 하면 된다. 어렵다고 안 하면 그 일은 소멸되고 그냥 못 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 중하다고 성령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건과 환경이 힘들어도 털모자 뒤집어쓰고 입마개 귀마개 하고 여섯 겹씩 껴입고서, 운동장에 나무를 태워가며 물 끓여 마셔가며 밤늦게까지 했다. 마치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가듯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듯 그와 같이 뛰었다.

9. 사람은 싸울 때 두 가지 싸움을 한다. 첫째는 ‘지능의 싸움, 정신적 생각의 싸움’이다. 또 하나는 ‘체력 싸움’이다. 지도자가 체력이 있어야 하고, 지능이 있어야 한다. 하나만 없어도 안 된다.

10. 운동할 때 그 순간마다 머리가 돌아가야 된다. 또한 힘이 있어야 그것을 받쳐 준다. ‘힘과 기술과 열정’이다.

11. ‘열’이 있어야 된다. 오토바이가 달려가는 것도 열, 차가 달려가는 것도 열, 사람이 뛰고 달리는 것도 역시 열이 있어야 된다. ‘열심’이 없으면 안 된다. 분별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열심이 있어야 된다.

12. 신앙인들 보면 ‘열심’이 죽은 자가 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의 불을 받고, 열심 자체의 불이 일어나고, 생각에 불을 붙이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꼴’로 끝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볼 때마다 잘했다고 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해낸 것이다.

13. 잘 행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사람은 ‘주’옆에 있어야 시동이 걸린다.

14. 어제 그렇게 잔치를 했어도 오늘은 개미새끼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다. 순간순간 머리싸움, 체력싸움, 행동싸움이다. 그때마다 무섭게 해내야 된다.

15. 사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도 잘했다고 하며 간다.

16. 기성은 지금 ‘저 이단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조용해졌네.’ 한다. 그들은 잔치 때만 떠들면서 가지, 잔치 끝나면 둘이 여행가서 보이지도 않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잘했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켰다.’ 할 것이다. 사망 길로 가면서도 그같이 말한다.

17. 불법을 행함으로 흑암의 세계로 가면서도 가는 줄을 모른다. 자기 주관으로 인해 불법인데 잘한 것, 좋은 것으로 보고 살기 때문이다.

18. 죄를 짓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 하나님이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왜 그것을 죄로 보냐.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교회를 안 다닌다. 웬만하면 다 죄로 보니까.” 하고, “술도 음식을 발효시켜서 먹는 것인데 왜 죄냐? 그러면 김치도 발효되었으니 죄냐?” 한다. 그들은 머리가 그 쪽으로 잘 발달해서 잘 따진다. 그러면 “그래, 네가 잘 따진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19. 무지가 자기도 죽이고 남까지 죽인다. 자기 주관으로 가는 사람은 밥이 될 것을 죽으로 쑤면서도 잘 한다고 한다.

20. 세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인에 속한 자들, 곧 악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선에 속한 자들이다. 선에 속한 자들도 처음에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다. 주관이 확실치 못하고 답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근본을 알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21. 기성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관을 세 가지로 따진다. 하나는 ‘있다’ 하고, 하나는 ‘없다’ 하고, 또 하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으니 불문에 붙이자.’ 한다. 이 세 파들이 싸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교파는 신학에서 만들어진다. 무식한 자들이 만든 것이다.

22.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고, 우리들은 산에서

제사 지내야 신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장단 저 장단에 춤추지 말고 내 장단에 춤을 춰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

23.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지금 이 때다. 지금이 중요하다.” - 이 말은 방언이나 하고 신령한 꿈이나 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의 존재자니 나와 같이 예배하자 하는 말이었다. 현재 신학에서 이것을 못 풀고 있다.

24. 현재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못 풀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는데, 태양 같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한다.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서 본인들 논리가 틀린 것을 스스로 증거하며 스스로 틀렸다 한다.

25. 유명한 신학박사들이 말하길, ‘요시야가 갈그미스 전쟁에서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왜 죽었는지 알면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얘기했다. 그러나 섭리는 중고등부도, 유치등부도 다 아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가르쳐 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강의하면 확 풀릴 것이다.

26. 중고등부가 강의해서 부모를 전도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 많이 안다고 하는데 많이 모른다. 말만 하면 틀린 말이니 모르겠다 하는 것이 답이다.

27. “진리를 모르면 자유가 없고, 진리를 배우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다. 사망권에 묶여 있는 삶이다.

28.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에서 살다가 이 방으로 와버렸다. 방 하나 사이다. 문 열고 나오면 다른 방이고, 문 열고 나오면 바깥세상이듯 그렇게 다르다. 이곳으로 가면 자기 집으로 가는데, 저곳으로 가면 평생 가도 딴 길로 간다.

29. 성령께서 “지금 중요하니 지금 자꾸 가르쳐서 넣어주어라. 그동안 못 가르친 것을 모두 가르쳐 주어라. 계속 큰 모임도 갖고, 큰 행사도 자주해라.” 하셨다.

30. 일할 때 일 저지르기도 하고, 일하는 것으로 복도 받고 대가를 받기도 하니 잘해야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고로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능숙한 자, 시범자로부터 배우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

31. 지난날은 끝났다. 지금 할 일 안 하면 그냥 끝난 것이다. 어떤 것은 다음날 또 하기도 하지만, 그 때 그 순간이다. 하루씩 새로운 삶을 매일 사는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예비하고, 들은 것이 있어야 제대로 산다. 지도자들은 특히 현실을 판단하고 세밀하게 알고 해 나가야 된다.

32. 지금이 늘 중요하다. 그때마다 일할 때마다 세밀하게 해야 된다.

33. 인계를 받을 때는 일을 해 오던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꼭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교역자도 이동할 때 후임자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며 인계해야 된다.

34. 한 교회에서 1년 반 끝던 교회 문제를 어제 갑자기 상대 주인이 팔겠다고 하며 만나자고 했다 한다.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다.’ 했으니 잘 살펴야 한다. 그 말을 잊고서 ‘안 판다더니 이제야 판다고? 싫어.’ 하면 안 된다.

35. ‘지금 중요하다.’는 말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중요하다 했는데도 저 길로 간다. 그러면 살지 못한다.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고생을 진탕하고 돌아온다.

36. 섭리사에서 생명 하나 없어지는 것, 가을바람에 낙엽 날아가듯 없어진다. 목숨을 걸어야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황금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다.

37. 기독교가 2000년을 박박 기며 자손 때까지 그 복을 인계해 줘어도 여기에 못 왔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일평생

금덩어리 하나 못 만지고 죽는데, 황금천국에는 금덩어리가 월명동의 돌 같이 많다. 그것을 얻는데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겠느냐.

38.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인정하고, 메시아가 좋아하고 이끌어내야 겨우 된다. 자기들끼리는 어림도 없다. 몸 바치는 게 그렇게 대단하나. 영도 바쳐야 되고 혼도 바쳐야 된다. 그렇게 겨우 해서 가는 곳이다. 자기 인생 한 몸 병 안 들고 제 명대로 살아나가기도 힘든 판국에, 하나님 옆 황금천국을 보통 해서는 주지를 않는다.

39. 성령님은 “황금천국에 간다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대가를 가지고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셨다.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서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40. 그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그냥 주겠느냐. 주면 빼앗지도 않고 영원히 뒤야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 한 건이라도 없어야 허락하는 것인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땅에서 하나님과 주와 뜻을 이룬 자, 끝까지 행한 자에게만 허락 된다.

41.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 봐라.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도 못 견디는 지옥을 영원히 견뎌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구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어도 정말 지옥에는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하셨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동안 하나님의 속을 썩였어도 지옥에 보내면 안 된다.’ 할 정도이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42. 자기가 몸부림쳐 지옥도 찾아가고, 천국도 찾아간다.

43. 선생 고향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렇게도 욕만 위해 살았다. 지금도 욕만 위해서 살아내고 있다. 그러나 선생은 9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위해, 의를 위해 살아왔다. 그렇게 욕만 위해서,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산 사람들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이렇게도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이렇게도 차이가 있다.

44. 지금은 문전옥답을 다 자치하고 큰소리치고 살지만, 예전에 내 앞에 큰소리치던 자에게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던 내가 속으로 더 큰 소리를 쳤다. ‘나의 때가 오리니, 그때는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우러러보느라 고개만 아프리라.’ 하며 어렸을 때부터 자부심을 갖고 해 왔다. 하나님이 길렀기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45. 월명동에서 많은 자들이 신학교에도 다니고, 많은 지도자들이 났는데 그들이 늘 선생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하나. 우리는 신학도 하고 목사도 될 것인데.” 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커서 말도 못한다.” 하고 한마디씩 했다.

46. 월남에 갔다 온 후 큰 형이 나에게 “앞으로 뭐 할래?” 하기에 “모세같이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내는 일을 할 것이다.” 하고 큰 소리를 팡팡 쳤다. 그러면 큰 형은 한숨을 쉬며 “또 저런 말을 한다.” 했다. 20대 때 큰 형은 큰소리치며 성결교단에서 아주 요직의 일을 하며 선생에게 늘 자기가 하는 일을 얘기하곤 했다.

47. 그때는 선생이 앞으로 할 크나큰 일에 대해 한마디씩 하면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결국 하고야 말았다. 모세와 같이 애굽에 있는 자들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내는 일을 시대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는 시대의 주가 되었다. - 이것이 얼마나 큰일이냐. 지구상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 수십억이 움직이는 세계에서 맨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게 하셨다.

48. 선생은 지구상의 정신적 지도자요, 사상가요, 실천주의자요, 아는 만큼 뻔뻔한 일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자다. 가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이다. - 사람은 사람인데, 생각, 정신, 사고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49. 항상 주를 만났을 때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도 하던 과거를 잘 잊는다.

50. 선생은 과거에 대둔산에서, 삶의 터전에서, 월명동을 개발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도 뛰고 달

렸던 것을 항상 생각한다. 현실에 그 생각을 하면서 바위도 깨고 들어갈 정도로 강한 마음을 먹고 해 나간다. 그러니 무슨 일을 붙여놓으면 볼만 하다. 하는 것마다 기적이요, 표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51. 선생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라. 끝까지 보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해라. 그러면 끝에 가서 하나님께 서 꼭 역사해 주시리라. ◎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를 놓고 논했습니다. 우리의 일생가운데 중한 것이 그때마다 지나가니, 과거에 못 한 것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잘하면 복직도 된다 했습니다. 의와 사랑과 공의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승리>라는 것은 한두 가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2. 어떤 사람은 믿음에 승리했고, 어떤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승리했다. 늘 예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들은 예술로도 승리하고, 어떤 자는 핍박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도 하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도 했다. -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할 일을 한 것을 '승리'로 본다.
3. 승리라는 것은 대충 따져 보아도 300여 종류가 되고, 세밀하게 따지면 삼천 가지, 만 가지도 넘는다.
4. 선생은 40년 동안 수만 가지를 승리했다. - 기도 생활에 승리하고, 10년 동안에만 볼펜을 4천 자루 가까이 쓰면서 기록하는 데에도 승리하고, 수만 번의 설교를 하며 승리했다.
5. 백만 번도 더 많은 싸움을 하면서 어느 때는 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개인으로 패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고 행동 조건을 못 세워서 지게 된 것이다.
6. 메시아는 지는 법이 없다. 다 이기고 왔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 이긴 자로 취급을 받는다. '왕의 어인'만 찍어도 이기는데 승리를 안 할 리가 있겠느냐.
7. 메시아는 항상 개인으로는 지지 않는다. 다만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고, 행동의 조건을 못 세워서 지는 것이다. 예수님 또한 따르는 자들이 믿음의 조건을 못 세워서 시대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다.
8. 한두 가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수만, 수백만 번의 싸움에서 이기고 40년 역사를 승리로 매듭지었다.
9. <휴거>를 이루어야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휴거에 있기에 휴거를 못 이루면 승리했다고 볼 수 없다. 휴거에 승리하면 다 승리했다고 봐도 사고가 없다.
10.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은 승리를 못 한 자들이요, 시대를 좇지 못한 자들이요, 시대의 죽음의 잠을 자는 자들이다.
11. 하나님이 40년 동안 역사를 끌고 오며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주>가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께서 일체 되어 늘 그때마다 이기게 해 주시고, 표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며 성령이 돕고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천사들을 수억, 수십억씩 투입해서 이기게 해 주셨다.
12. 각자 생활에서 이기는 정도만 보면 작으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는 엄청난 싸움과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13. 수백억의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수천억의 천군, 천사들이 필요하다. 하늘나라도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불가피하다. 그런 엄청난 세계를 겪고 왔어도 육신 세계만 보니 잘 모른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보면 엄청나다.
14. 육의 세계에서도 알고 같이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자들이 반대하고 막고, 식구들이 막기도 하고, 애인들

도 막고, 동네 사람들도 막고, 민족이 계획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갈며 사상적으로 목숨을 걸고 막기도 했다. 어느 정도 인고 하니, 한마디로 “지옥에 가도 좋다.” 하며 반대할 정도였다. 사탄은 어차피 지옥에 사니, 지옥에 가도 좋다는 사상으로 그들을 휘어잡은 것이다.

15. 메시아는 <사탄을 이기는 술법>을 안다.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채 갔는지를 알고, 사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16. 기성 세계는 ‘갓난아기’라 잘 모른다. 대여섯 개씩 박사학위를 땀어도 섭리사의 중고등부만큼도 모른다. 그들은 “태양이 간다.” 하며 천동설만 주장하다가, 과학의 메시아 격인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하니 오히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재판하고 멍청한 이론만 제시했다. 가장 큰 착오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의 육이 살아났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들은 육신이 살아나서 하늘나라로 간다고까지 한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한다.

17. 메시아는 상상도 못 할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 지구상의 사람이 75억일지라도 그 지식을 못 따라간다. 주께 물어보면 금방 대답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대답하시기 때문이다. 고로 주는 ‘그 순간’에 안다.

18. 선생의 큰형은 성결교단을 일으켰던 핵심 멤버 중 하나였고, 작은형은 신학 학위를 네 개씩 따고 우리나라 기독교의 3~4위 위치에 있던 자였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신 말씀을 풀지 못했다.

19.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고, 우리들은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셨다. - 이는 메시아와 같이 예배 드리라는 말이었다.

20. 기독교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양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고기보다 식물을 싫어하신다.”라며 그럴듯하게 푼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가인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먼저 난 아이’로서 보다 ‘사탄에 속한 자’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 사탄이 먼저 건드려서 사탄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다.

21. 선생이 이같이 성경을 풀어 주니 작은형이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풀어 주었듯, “네가 기다린 그로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마패를 가진 자에게 “너 누구냐?” 할 때 “암행어사다.” 하듯 대답한 것이다.

22. 지구상 사람들이 다 주를 보고 메시아가 아니라 해도, 주는 메시아다. 성경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모두 이루어 주었다.

23. 우리의 승리는 지난 40년 섭리역사의 승리뿐만 아니라 6000년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이다. 생명을 구원하고, 휴거까지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24.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모두 이겼기 때문에 애굽과도 같은 기성의 세계, 무지의 세계를 벗어나고, 기저귀를 찬 것을 벗어던지고 승리한 것이다. 새 시대 주를 믿고 살았기에 승리했다.

25. 불신자, 배신자, 역지 쓰는 자들과 싸워 이겼고, 세상만사 각종 것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 이는 기도했기 때문이고, 행했기 때문이다.

26. 배신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함으로 이겼고, 예술의 세계 역시 뛰고 달리며 열심히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앞질러 승리하게 되었다.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뒤에서 충성한 자들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다.

27. 메시아는 <1초>가 귀하다. 그 1초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10년씩 해도 못 하는 것을 하기 때문이다. 고로 주는 평생을 만나기 어려운 존재이다.

28. 호롱불로 전깃불을 만들지 못하듯이 아무리 생명을 데려와도 주가 아니면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

29. 우리는 자체적인 자기와의 싸움도 이기고, 기도해서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없이 충성하며 이기고 이겨 왔다. 삼위일체가 함께함으로 표적과 기적으로 승리했다. 우리가 이긴 것으로 6000년 역사의 모든 선조들 역시 이긴 바 되었다.

30.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만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고로 하나님은 마음 놓고 메시아 한 명을 지구상에 보내신다. 닥치는 대로 이기니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다.

31. 모두 주가 알아주었기 때문에 구원시키고 휴거시켜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해 줘고. “어떻게 승리했나? 지난날 수만 가지씩, 수십만 가지씩 모두 승리를 했다. 하나하나 참을 것 참고, 이길 것 이기고, 기도할 것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합당히 행한 것들 모두 승리한 생활들이다.” 했습니다. 절대 믿고 절대 행할 것, 승리한 일들이라 했습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으니, 크게 확대시켜 보면 6000년 역사로 승리를 한 것이 됐고, 또 우리 섭리사 자체로 볼 때 40년 동안에 승리한 역사가 됐다 했습니다. 끝까지 믿고 왔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온 지구상에 있는 각 교회와 각 나라에 우리와 함께해 주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적으로도 북한과 함께 이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 줘서 결국 평화의 역사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계속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시 주실 때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 모든 책임자들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말을 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잘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모두 행하게 해 주시고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펴는 이 역사도 평화롭게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를 보냈으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대 행할 것을 다 성경에 예언된 때가 돼서 행해 주시는데,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해야 더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를 믿고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준비도 안된 그 정도에서는 주를 만나고 만왕의 왕을 만나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일개 나라의 왕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다? 그건 하지 마라. 어떤 큰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을 갖고 와서 만나라.” 했습니다. 일개 사장들도 어떤 큰 이벤트가 없으면 절대 소개를 안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모두 뛰고 달리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큰 지구상의 어떤 것이나 우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건을 두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뭐하냐? 보고 싶어 만나면 뭐하냐? 늘 이렇게 보고 싶어 다 만나 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역시 그렇게 평생을 머리가 희도록 기다렸어도, 말 한마디도 못 들어 보고 얼굴, 지체, 손가락 한 마디도 못 보고 사는데, 우리들은 들은 것을 만족하고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온 지구상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고 영원하기를, 이들을 축복하고 가오니 잘되고 형통되고, 많은 이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연결돼서 택한 자들을 불러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

<2019년 1월 2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승리한 자들의 할 일은 승리하도록 함께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 <영광>은 영광을 받는 자가 원하는 대로 그 시대에 해당되게 돌려야 된다. 봄에는 봄에 해당되는 대로, 가을에는 가을에 해당되는 대로 때에 맞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본이듯, 영광도 그 시대에 해당되게 돌려야 되는 것이 기본이다.

3. 이 시대는 창조 목적의 근본을 이루고 천 년 역사를 펴는 시대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섬김과 모심과 위함으로 영광 돌려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혼인 잔치에 말씀과 예술로 영광을 돌리며, 생명을 이끌어 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생명에게 가르쳐 주고 알려 주어 그들이 행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4. 전에는 주도, 말씀도 없는 기간이었기에 혼인 잔치가 음식이 없는 잔치가 되듯 했다. 와서 노래만 하고 춤이나 추고

가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 와서 베풀어 주는 역사가 되었다.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음식이 안 나오니 기다리기만 한다.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와야 비로소 잔치를 한다.

5. 주로서 할 일은 말씀을 전해 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기간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니 그대로 행하면 된다.

6. 혼인 잔치 때 잔치 마당에 있는 손님들에게는 신랑이 와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대의 신부들은 신랑이 말하는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 신랑이 신부에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며 신랑의 생각과 프로그램을 전해 주는 격이다.

7. 항상 주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주관권의 천국>이다. 주관권을 벗어나면 ‘간접 주관권’이 될 뿐이다.

8. 주가 있는 곳이 천국이니 주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쫓아온다.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서 사랑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9. 아무리 멋진 미인이라 해도 ‘시대의 사람’만큼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영원한 사랑을 못 받기 때문이다. 기성 시대를 불지라도 자녀급의 사랑만 받지, 애인급의 사랑은 받을 수가 없다.

10. “지구가 생기고 나서 처음이다.”- 주가 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라. 메시아와 같이 행하는 것이 그렇게 크다. 고로 그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러 오는 것이다.

11. 기성은 이 같은 말씀을 못 한다. 자기가 보는 대로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살지 못한 자들은 현실감 있게 말하지 못한다. 구시대는 구시대 주관권만 두고 말하지, 새 시대 주관권을 알 수가 없다.

12. 주를 바짝 보고서 중계를 하는 자와 주를 가까이하는 사람을 보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

13. 시대도 주가 있을 때 말하는 것과 주가 없을 때 말하는 것이 다르고, 주가 와서 직접 말하는 것과 주를 따르는 자들이 말하는 것이 다르다. 고로 목이 빠져라, 눈이 빠져라 주를 기다리는 것이다.

14. 빌립이 “주를 보면 좋겠다.” 한 것은 그의 모양과 형상을 보는 것으로 족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를 보고 듣고 깨닫고, 많은 것이 풀어지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15. 최고 전문가는 쭉 훑어보기만 해도 알듯이, 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훑어보면 각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다 안다.

16. 우리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무한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17.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다. 그 나머지는 계시로 전해 준 것이 있지만, 성경에 수록된 것이 많지 않다. 제자들이 기록해서 쓴 것을 보면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그 과정을 많이 썼고, 핵심적인 것이 많지는 않다.

18. 마치 쳐다보면 ‘여기는 나무를 심고, 여기는 돌을 심고, 여기는 꽃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알듯이, 성경을 훑어보면 ‘이 시대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다.

19. 빨리 쳐다보면 ‘역사’라는 흐름을 안다. 성경도 흐름을 봐야 된다.

20. 현실에서 과거를 본다. 역사를 안 살아 봐도 아는 것과 같다. 그 현실에서 미래도 본다. 조금 더 단장하고, 조금 더 차원 높은 역사가 최고의 급으로 가는 역사이니 아는 것이다.

21. 월명동이 어떻게 될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선생은 계획서가 나와서 먼저 보는 입장으로 먼저 알았다.

22. 신부들은 밑의 단계에서 보기에 주가 하는 일을 잘 모른다. 주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성자의 심부름을 많이 했기에 안다.

23. 하나님이 다 해 주셔도 자기도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해 주시니까.’ 하며 들어오는 밥상만 쳐다 보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본인이 노력한 구상 위에 하나님의 구상이 떨어진다. 하나님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생각을 부지런히 하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더 낫다.” 하고 고소해하시며 가르쳐 주신다.

24. 하나님께 3.16 휴거기념관이 너무 작지 않냐고 하니, 하나님은 “3.16 건물은 휴거를 이룬 기념관이다. 큰 모임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하셨다.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 둔 입장이다. 고로 기념관은 그리 크지 않아도 된다.

25. 3.16 휴거기념관은 ‘의사당’ 같은 곳이다. 국회 의사당은 국가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26. 하나님이 그리도 열심히 불꽃같이 살피시며 함께해 주시지 않고, 주가 그리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6천 년 역사와 당세의 40년 역사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없었다.

27. 40년 동안 하루하루 눈물겹게 해 온 일들이 기록에 다 못 남길 만큼 많다. 기록을 못 한 것은 그림으로 남기고 있다.

28. 이제 승리하였으니, 승리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고, 이제 신랑이 나왔으니 따르는 모든 신부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전에도 물론 신랑에게 편지가 오고, 또 신랑이 어떻게 하라 하고 서로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과 다르지요. 이제 말씀을 듣고 하면 됩니다. 혼인 잔치에 신랑과 신부가 있고, 음식이 있어야 하듯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들에게 할 말씀입니다. 모든 하객들과 축하하러 온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우리 섭리사의 모든 자들과 함께하고, 민족과 세계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지만, “북한에 대한 모든 평화의 역사는 이제 나와서 하겠다. 신부들의 평화의 역사도 나와서 하겠다.” 하고 나와서 이제 하오니,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이 그 육신을 쓰고 행하시며 이끄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3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고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주>라도 늘 이기려고 해야 이겨지지,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이겨지지 않는다.

2. 늘 독수리눈으로 쳐다보듯이 세상만사를 쳐다보고, 자기 현실에 대해 ‘지금이 중하다. 지금 잘하고 있는가?’ 생각하며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

3. 현실에서 과거도, 미래도 결정된다.

4. <승리>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늘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5. 주의 마음을 받은 자라야 주의 마음을 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이상세계에 왔는데도 전도를 안 하면 안 된다.

6. 금년도는 <전도의 해, 선교의 해>라서 안 하고는 못 견딜 것이다.

7. 전도는 하루면 한다. “전도 안 하면 오늘 죽는다.” 하는데 다른 것을 하러 가겠느냐? 한 시간 내에도 할 수 있다.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을 그와 같이 안 먹으면 못 하는 것이다.

8. 생명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많은 죄도 용서받고 죄의 사하심을 받게 된다. 메시아도 생명 전도를 안 했으면 홀로 돌아다녀서 뜻을 못 편다. 누구라도 개인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못 편다.
9. 전도를 못 한 사람은 뜻을 못 편 사람이다. 자신을 이끌어 옳으로 겨우 하나님의 뜻만 펴고, 본인이 펴야 될 뜻은 못 편 것이다.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10.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치면 부끄러운 것이다. 이는 마치 수영장에서 수영복이 없어 홀로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격이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가 제대로 갖춘 자들 속에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다. 어디를 가나 제대로 갖추어 놓고 만 들어 놓지 않으면, 다른 자들이 볼 때 집도 환경도 흠이 있으니 부끄럽게 된다.
11. 하와는 죄를 범하고 부끄러워 가렸다.
12. 행한 대로 갚아 주지 않으면 공의롭지 못한 자가 된다.
13. 하나님은 작으나 크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만족하신다. 교회도 사 주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 주었으니 모두 귀하게 봐야 된다.
14. 하나님의 대성전, 이 시대 예루살렘, 주가 직접 거하고 계신 자연성전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15. 어제 보니 몇천만 원짜리 소나무인데, 물을 안 줘서 바로 죽었다. 그 전에도 물을 안 줘서 죽은 큰 아름드리나무가 몇 개나 있다. 식물은 물이 없으면 바로 죽는다. 이와 같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말라 버린다. 주는 식물 앞에 물을 가지고 오듯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
16.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것이 물이요, 밥이다. 생명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주의 말씀은 양식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라.
17. 말씀이 약하니 전도를 제대로 못 한다. 주도 말씀으로 시대를 깨우쳐 주고 알게 하여 말씀으로 이끌어 낸다.
18. 말씀이 운동으로 나갈 때도 있고, 노래로 나갈 때가 있고, 각종 행위로 나갈 때도 있다. 여러 가지로 그때마다 행한다. - 말씀의 실존 세계다.
19. 말씀을 근본으로 깨닫고 알아야 전도하고 생명을 이끌어 낸다.
20. 전쟁에서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싸우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의 전쟁도 말씀의 무기로 해야 된다. 말씀으로 주가 이기고 이기는 것이다.
21. 항상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든지 말씀을 매일 상고해야 된다.
22. 구시대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이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시대에서 사는 것이다.
23. 시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진 자가 제대로 활을 날리면 100% 이긴다. 그런데 제대로 화살을 못 날리고, 다른 데만 쏘기 때문에 과녁판을 못 맞히는 것이다. 사람의 심령, 마음, 정신, 생각의 과녁판에 제대로 맞히면 안 죽을 리가 없다. - 옛 것을 장사하는 것을 보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보면 해결되었다는 계시요, 새로운 세계로 오게 되었다는 계시다.
24.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제대로 근본을 모르는 자들이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다. 마귀들은 '주'를 아는 단계에서 싸우는데, 그들은 '주'를 종교 개혁자로만 아니 이길 수가 없다.

25.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가 이긴 자요, 승리자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와 함께 자기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된다.
26. 운동할 때 공을 하나도 못 넣었어도 이긴 자 편에 있으면 자기도 이긴 것이 된다. 이같이 주 안에 있으면 일단 이긴 입장이 된다. 다만 골을 못 넣었으면, 단체전에서는 이겼으나 개인의 공적이 없을 뿐이다.
27. 항상 이기려면 그때 그 순간에 제대로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자가 승리한다.
28. 휴거 속에 다 들어 있다. 휴거된 자의 생활은 막 하더라도 볼 만하다. 휴거된 자는 말하는 것도 들어 볼 만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기적이요, 표적이다.
29. 완성된 작품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멋있다. 그러나 완성되지 못한 작품은 아무리 똑바로 봐도 부족하고 아쉽다. 이와 같이 항상 완성된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야 만드는 자, 곧 주가 와서 행할 때 만족히 여기고 말씀을 해 주신다.
30. 각 교회가 “주여, 오시옵소서.” 할지라도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부끄럽게 된다.
31. 주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아는 것이다.
32. 항상 승리하려면 배구를 하나 축구를 하나 농구를 하나 그 순간 ‘볼 잡은 자’가 잘해야 된다.
33. 축구 경기를 90분 동안 할지라도 자기가 볼 잡은 시간은 많아야 3분밖에 안 된다. 그 3분을 뛰기 위해 4~5년씩 질주하며 극기 훈련을 하고, 90분 경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34. 선생이 축구 할 때 안 지치는 원리는 ‘90분 내내 다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는 시간은 볼 잡는 시간 3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계속 긴장하면 지쳐 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섭리사도 40년을 뛰었어도 직접 자기에게 해당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자기 때, 그때 잘했어야 한다. 그때가 지금이다.
35. 볼을 잡았을 때가 중요하다. 발도 정확하게, 마음도 정확하게, 각도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마치 총 가진 사수가 정확한 반응으로 과녁에 정확하게 쏘듯 해야 된다. 성령의 코치는 하나다. “마지막 슈팅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발을 대라.”
36. 주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 예전에 오아시스샘을 팔 때, 선생이 파라고 한 곳을 파니 80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 터져서 하늘로 치솟았다.
37.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고, 주는 지구상의 왕 중의 왕으로서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연 계시학>을 만들었다. - 자연을 글자로 보고 표현했다.
38.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글이다. 언어는 각각이나, 실존체는 같다. 하나님의 만물의 글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똑같이 안다. 언어도 근본을 배우면 복잡하지 않다. 근본을 배우면 다 통한다.
39. 사람들끼리도 서로 친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바로 알아듣고 대답해 버린다. 이는 심령을 보기 때문이다.
40. 영계에서는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풍부해서 쳐다보며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다 통한다. 성경에서 ‘그 나라에 가 보니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통하더라.’ 했다. 생각한 것이 언어가 되어 통한다. 생각 실상 세계다.
41. 바위 절벽에서 자란 소나무는 100년, 200년, 300년씩 가도 그리 크지가 않다. 옛날 사람들은 시골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니느라 원시인들같이 크지 않았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환경상 크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 힘들고 어

려운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잘 크지를 않는다. 겨우 자기를 구원시키는 정도다.

42. 옛날에 선생이 겨울에만 약 삼천 권의 책을 읽었다. 어떤 의지로, 어떤 뜻으로, 누가 썼는지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보고 또 봐도 꿰뚫어 볼 수 없는 책이 있으니, 성경책이었다. 성경은 600번을 봤을 때도 해석을 못 했다. 800번, 900번, 1000번 넘어가니 연결이 되며 영계에서 그 위치를 이해하면서 깨닫게 되었다.

43. 요한계시록에 ‘안팎으로 쓴 글을 다윗의 자손 중에 풀더라. 그 전에는 풀지 못해서 모두 답답해서 울고 있더라.’ 했다. 성경은 행해야 풀어진단다. 메시아는 100% 행하기 때문에 그가 와서 성경을 푸는 것이다. 또한 안쪽은 영계, 바깥쪽은 육계를 말한다.

44. 구약말씀은 보다 육적인 말씀을 뜻하고, 신약말씀은 내적인 말씀, 혼적인 말씀을 말한다. 성약말씀은 더 이상 없는 영적 단계의 말씀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교회라면 더 말씀을 하지만은, 온 세상 온 인류에게 주는 말씀의 때와 시간이 있으니 여기서 마쳤고, 더 하고 싶은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말씀으로 승리한다. 주는 말씀이 풍부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의 근본을 아니 그는 모두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그가 역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이길 것이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큰 것들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 줘 놓고 전해 듣게 하는 것, 그것을 듣고 뜻을 펴는 것, 이루게 하는 것, 행하는 것이다. 역시 행하는 만큼 말씀을 풀어 주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성서를 제대로 깨닫고 행할 수가 없어서 그가 와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내놔 봐라 하고, 성경 풀어 봐라 하면서, 행해 봐서 얻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40년 동안 말씀을 풀어 행했습니다. 행할 때에 말씀이 풀어지고, 잠언도 행한 것만 잠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길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일, 두 주일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할 때 “가장 말씀이 위대하고 크니, 말씀을 듣고 전하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할 때, 마음이 풀리고 기뻐하시고 사랑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성자의 말씀이 이들 위에 영원하고 충만할지어다. 온 인류의 세계를 하나님이 늘 살피시고 우리 민족을 살피사 평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 전만 해도, 내가 갇혀 있을 때만 해도, 작년도 2월 달까지만 해도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며 싸움을 하며, “저 나라 아무래도 터지겠다.” 온 세상 사람들이 “참 한국도 안타까운 나라다, 원자폭탄이 없으니까.” 했습니다. 북한은 곧 쏘겠다 하고 핵폭탄을 실험 발사하고, 각종 성질을 건들고 혈기 나게 만들고. 그래도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뒤엎을 수도 없는 입장. 하나님은 보낸 자를 가지고 그들을 말로 뒤엎어 버리고, 말 전쟁을 한다 했습니다. 말이 실상이 돼서 그대로 되는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대로 돼서 말로 실상 세계를 이룰 자 누구냐? 오직 하나님 보낸 자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말로 해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같이하지 않는 자들의 말이기 때문에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말씀의 실상으로 모두 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림에 축복하심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온 민족과 세계를 축복하고 축복하노라. 아멘.

<2019년 1월 4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터전 위에서 승리한 바가 되었다. 이는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연애하다가 결국 결혼하고 살게 되어 승리한 것과도 같다.

2. 항상 성자도 성령도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판단할 때 <핵>을 먼저 분석하여라.” 하셨다. <핵>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핵>을 해결하고 <핵의 주변>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다.

3. ‘집을 지은 것’은 핵이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주변의 일이다. 두 가지를 다 해야 <완전한 승리>다. 집을 짓는 일만 하고 주변 정리를 안 했으면 핵만 승리한 것이다. 늘 두 가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역사다.

4. 지금은 ‘다 가르쳐 주는 때’다. 그 전에는 ‘과정 중’이라 다 가르쳐 줄 수 없는 때였다. 과정 중인 것은 다 말할 수 없고, 행하고 끝난 다음에는 본인들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

5. 주가 와서 <말씀>한 것은 ‘핵’이요. <증거>의 역사는 ‘주변’의 일이다.
6.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모두 해야 ‘완성했다. 근본을 해결했다.’고 본다.
7. 일을 했어도 ‘A급으로 했느냐, B급으로 했느냐, C급으로 했느냐.’로 구분을 한다. 승리도 ‘A급 승리냐, B급 승리냐, C급 승리냐.’로 구분한다.
8. 주는 ‘핵’이니, ‘핵’은 할 일을 하고 간다. 다만 ‘주변’이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함으로 아쉽고 답답한 부분이 있다.
9. 용이 가면 머리는 제 선을 따라서 가지만, 중간 부분과 꼬리 부분은 그 선을 따라가지 못한다. 꼬리도 ‘선’대로 꼬리 치면서 나선형을 이루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선을 무시하고 뺏뺏하게 따라오는 부분이 있다. 이와 같이 주가 선을 따라서 갈 때, 주의 몸 된 지체들이 선을 따라 잘 흔들고 같이 춤을 추며 가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때가 많다.
10. 실상 주는 승리했으나, 따르는 자들은 제대로 승리하지 못해서 ‘B급으로, C급으로’ 승리를 한 격이 되었다.
11. 지난날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을 이루어서 승리하게 되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니 그것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신부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남자의 마음에 100% 들게 하지는 못했다. 다만 남을 사랑치 않고 남자만 쳐다보고 사랑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다. -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B급 승리를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12. ‘B급 사랑’이라도 승리했으니 항상 사랑을 받으며 가게 된다.
13. 지난 40년을 보자면, 하나님만, 성령님만, 성자만 알고 사랑하고 주만 사랑하는 데 젊음을 쏟고 인생을 쏟으며 왔다. 고로 승리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것만큼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
14. 아담과 하와가 다른 것은 했어도 핵인 사랑이 깨지니 전체가 깨져 버렸다.
15. 아담과 하와가 제 할 일을 못 한 것은 그 후손인 노아가 했다. 누구든지 그 일을 하는 자라야 그 일을 다시금 승리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함이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고 그것을 터치하니 사탄이 개입하게 되었다.
16.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 나가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인데, 다른 사람은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본다.
17. 월명동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억울하지 않게 늘 하나님께 간구해라.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18. 항상 모르는 사람에 의해 잘 아는 사람이 아픔을 당한다. 모르는 사람이 알고 행하는 사람을 괴롭힌다. 고로 예수님도 “몰라서 그러하니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달라.” 하셨다.
19. <사랑>하면 승리한다. 사랑이 깨지면 ‘A급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믿음의 승리도 있고, 각종 승리가 있지만, 핵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주는 사랑’의 승리다.
20. 실패의 근본은 사탄이 에덴동산에서 육적 타락을 하도록 행한 것이다. 육적 타락 전에 마음이 돌아가서 육이 돌아갔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만 승리했다고 해서 사랑의 승리를 못 한다.
21.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셨다. 마음으로는 됐지만, 육신으로는 안 되었다는 말이다. 정신적으로만 사랑해서는 승리를 할 수 없다.
22. 사탄은 육신을 꺾어 없애고, 마음을 꺾어 없애는 두 가지를 한다. 고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성령과 성

자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제대로 승리한 것이다. 마음만 사랑해서는 육적으로 다 빼앗긴다.

23.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육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며 산다면, 이는 육신은 뺏긴 것이다. 육신이 행하지 못하면 육적 사랑은 실패한 것이다.

24. 마음만이 아니라 육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그만큼 행해야 된다. 육신이 일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야 된다.

25. 선생은 사탄이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육신을 뺏어 갔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육신을 뺏음으로 이긴 것이다. 사탄이 이겼기 때문에 4천 년간 큰소리치며 지배를 했다.

26. 예수님은 오셔서 “마음도, 몸도, 생명나무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셨다. 그 말씀대로 행한 자는 자녀권 시대에서 승리했고, 그와 같이 하지 못한 자는 또 승리하지 못했다.

27. 항상 ‘사랑의 승리’다. 예수님 때는 역사적으로 자녀급에서 사랑의 전초를 했다. 그 터전에서 신부급 사랑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역사로 오게 된 것이다. 한 번에 사랑이 뛰어오를 수 없다.

28. 비약은 ‘빠약’으로 끝난다.

29. ‘역순의 조립법’이다. 기계를 뜯을 때는 맨 바깥쪽부터 뜯어내지만, 조립할 때는 마지막에 뜯은 것부터 먼저 조립을 한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도 항상 순서에 의해서 해 나가야 한다.

30. 지금은 ‘작은 메시아들’이 되라고 메시아가 배운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

31. 어느 때는 육이 먼저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영이 먼저 될 때가 있다. 영계에서 볼 때는 영이 먼저이고, 육계에서 볼 때는 육이 먼저다.

32. 항상 하나님은 영을 먼저 보시되, 육계에서는 메시아를 쓰고 와서 “먼저는 육 있는 자요, 신령한 자가 아니니라.” 하셨다. 영계에서 따질 때는 “육이 먼저가 아니요, 영이 먼저니라.” 하신다.

33. 육에 대한 것을 뺏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은 “몸은 뺏겼지만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은 “마음은 뺏겼지만 육은 안 뺏겼습니다.” 하면 후자를 크게 본다. 남자가 여자를 택할 때 ‘몸 뺏긴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몸은 안 뺏기고 마음만 뺏긴 자는 그래도 낫다 한다.

34. 사탄은 ‘육신 뺏는 것’에 집중한다. 마음이야 주를 따라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육신을 뺏는다. 그것이 마치 ‘땅 문서’를 뺏은 격이기 때문이다.

35. 육계에서는 육신이 핵이라 그렇다. 마음 세계는 보다 영적인 세계에 속한다. 고로 육을 뺏기면 안 된다.

36. 마음은 뺏겨도 육은 뺏기면 안 된다. 육신 뺏기고 육신을 다시 가져오려면 3년, 7년씩 근신 기간을 가지며 육신의 행위의 조건을 세워야 된다. 그러나 마음은 뺏겨도 금방 돌이킬 수 있다.

37. 마음은 왔다 갔다 해도 몸을 안 뺏겼으면 몸은 계속 따라온다. 그러나 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몸이 다른 곳에 있다.

38. 마음과 육의 세계 두 가지를 보며 사탄의 세계를 연구할 때 육을 안 뺏기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비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사탄이 이성으로 타락시킬 때 마음으로 꼬여서 육신이 따라가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마음을 꼬여도 육신이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 육신이 안 따라가면 그다음에는 이기기 쉽다.

39. 두 가지 세계가 있다. 육신이 사망권에 있되 마음은 생명권에 있는 자가 있고, 마음이 이미 사망권에 있고 육신은 생명권에 있는 자가 있다. 두 가지 종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된다.
40. 주는 이것을 깨닫고 사탄을 초반부터 이겨 왔다.
41. 사탄은 엄청난 무리가 있다. 섭리사를 나간 자가 다음 사람을 끄집어내어 또 인(人)사탄으로 만들듯, 에덴동산의 사탄도 한 마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42. 사탄도 한때는 천사의 옷을 입고, 천사장도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다.
43. 영계에서 보니 어마어마한 대군의 사탄들이 황막한 황토지대에서 붉은 황토 옷을 입고, 황토색 무기를 들고 얼굴 까지도 황토색을 하고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꺾는 일, 육신을 잡아서 타락시키는 일, 메시아를 불신하게 하는 일 등 각종 꺾어내는 방법, 싸워서 이겨 끌고 가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였다. 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유혹해서 끌고 다녔다.
44.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니 사탄에게 당하며 산다. 메시아만 사탄에 대해 알고 와서 전해 준다. 고로 그의 말을 절대 믿고 행해야 된다.
45. 사탄, 마귀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인과 선인들이 같이 섞여 살 수밖에 없듯이, 이 시대도 한때 사탄, 마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46. 인생 역사는 투쟁의 역사이고, 죽음을 내놓고 서로 싸우는 역사다.
47. 사탄은 지옥에 있기에 지옥의 위력과 사고와 사상이 차고 넘친다. 고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쉽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옥에 살지 않으니 ‘한 번 가 볼까? 얼마나 무서운가?’ 하다가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죄도 그러하다.
48. 선생이 흑암의 세계가 어떤지 가 보았다. 그곳에 사는 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위로하다 보니 그곳에 사는 자가 될 것 같았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이해하다 보면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어 버린다.
49. 사탄도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해가 된다. 그 말을 이해하다 보면 그 편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 보면 사탄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50. 절대적으로 메시아를 알면 목숨을 걸고 따른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형제끼리 싸울지라도 메시아를 절대 믿고 따라야 된다. 메시아가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낸다.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서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51. “눈까지 빼 주겠다.”라고 하던 자도, ‘그 많은 이단들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전도된 것’에 감탄하던 자도 자기가 조금씩 할 일을 못 한 것이 누적이 되니 쓰레기 집이 되어 버렸다. 결국 냄새 난다고 집을 뛰쳐나간 격이 되었다.
52. 바위 절경 자갈밭에서 나무를 캐다 옥토 밭에 옮겨 심어도 처음에는 몸살을 앓는다. 몸살을 앓다가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탄 세상이다. 멋있게 크다. 섭리인들도 그러하다. 그러나 몸살을 앓는 와중에 나간 자들이 있다.
53.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신광야로 옮겨 심었을 때 ‘애굽이 더 좋은데.’ 하고 몸살을 앓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옮겨 심지 않았으면 별목꾼이 베어 갈 입장이었다.
54. 모두들 산에서 죽어 가는데, 여기서 한 나무, 저기서 한 나무 캐다 심은 입장과 같다.
55. 역사를 계산해 볼 때 신약시대는 2000년이어야 하는데, 1940년 정도밖에 안 나온다. 왜 그럴까? 연결된 부분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19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100년 역사를 미리 준비시키면서 서서히 역사

를 편다.

56. 가까운 사람이 혜택을 본다. 태양도 가까울수록 더 뜨거움으로 혜택을 본다. 그러니 주를 가까이하며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해 나가라.

57. 누가 주의 발길을 묶느냐? 주는 끈에 묶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묶어라. 감동시키고, 길을 만들어 놓아라.

58.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함으로 이 시대에 남아져서 승리하게 되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도 같이 손발 맞춰서 같이 행하고, 주의 마음을 맞춰서 행하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난날을 봤을 때 우리가 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시니, 어떤 때는 이해도 못 하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를 믿고 버리지 않고 따라왔기 때문에, 사랑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승리는 모두 A급 승리도 있고, B급 승리도 있는데, “주는 A급 승리를 했지만 너희들은 용꼬리같이, 용 몸뚱이같이 완전한 그 선을 따라 움직이지 못했다.” 하고 그런 것을 모두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더 멋있게 하려면 그리함을 받도록 하라 했습니다. 테니스를 치나, 배구를 하나, 축구를 하나, 골인을 시켰다면 승리를 하는데, 멋있게 요리조리 빼고 단독 드리블, 그리고 강 스파이크, 그리고 테니스의 스트로크도 멋있게 해서 넣으면 더 멋있는 A급 승리가 되는데, 역시 그렇지 못하게 공을 넣은 것은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멋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지가까지 모든 주변 일에 이르기까지 잘 조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오늘부로 한국을 중심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각종의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운동을 하면서, 종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일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제 영광 돌리러 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 북부 지역에서 대학부 200명이 와서, 그들을 영광의 무대로 그대로 주가 이끌어 영광 돌리게 하여 온종일 하루 종일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이지가까지 하나님께 보여 줄 것을 다 보여 주면서, 나부터 영광을 돌리면서 행했습니다.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랑과 함께 있어야 신랑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리함을 받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그리고 월명동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大)성전에서 일하는데, 이지가까지 하는 일에 사실상 이지가까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잘못 보고, 자기 육적 주관으로 얹어매고 잡아당기고 할 그럴 여건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모두 이리저리 돌려 버리게 주관해 주시고, 평화롭게 해 나가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 충만케 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멋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내가 테니스를 칠 때 멋있게, 아름답고 신비하게, 그리고 모든 모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참 멋있다. 이런 것들이 또 남아졌으면 참 좋겠다. 테니스는 치고 나면 화면만 남아지는데.’ 하고 하나님께 아쉬움을 고하며 대화하면서 테니스를 칠 때, “이런 일, 저런 일 월명동 작업할 때 다 그렇게 한 것이다. 나머지는 있지 않냐?” 했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작업을 하는 것도 멋있게 해서 멋으로 지금 남아진 것이다. 나무를 심을 때도 저렇게 멋떨어지게, 기묘하게 모두 행하면서 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저렇게 멋으로 남아지지 않았냐?” 했습니다. 뭐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멋있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그리고 귀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중심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속이 시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영광을 돌리며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온전함을 갖고, 악인의 행위에 동요하지 말 것이고, “악인을 이해하다가 동요하게 되고 그 편이 되기 쉽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용감 있게, 용맹 있게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이해하다가 결국 북한 편이 되어서 공격해 오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서로 싸움질을 하게 되고, 서로 파가 생기게 됐습니다. 다 북한을 이해하나, 역시 거기를 근본으로 삼지를 말고 모든 자유주의적인 사고와 법을 따라, 천법을 따라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5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 앞에 머리는 비우고, 앉을 자리는 꼭 채워서 나아와야 한다. 속이 꼭 찬 상태에서는 먹으라고 해도 더 못 먹듯이

주 앞에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채우고 있으면 말씀도 안 들어가고, 대화도 안 되고, 대화를 해도 자기 주관대로 해진다.

2. 오해를 했든지, 나름대로 자기가 옳은 생각을 했든지, 자기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마치 병에 물이 팍 차서 더 채울 수 없는 격과 같다.

3.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도 만족하신다. 승리하고 와서 영광을 돌리고, 사랑도 하고, 좋아도 하고, 만나기도 해야 대화도 잘된다.

4. 승리하지 못하고, 할 일을 못 하고, 시킨 일을 하지 않은 자들이 영광을 돌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고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당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다.

5. <승리했다>는 것은 육의 세계를 통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자기 영이 어떠한지는 육계의 행실을 통해 영의 행실을 보면 안다.

6. 우리가 승리했다면, 승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도 승리자이다. 팀이 이겼으면 그 팀의 감독도, 코치도 이긴 것이다. 팀이 지면 그 주관권에 해당되는 자들이 모두 패한 것이다.

7. 승리는 홀로 이룬 것이 아니다. 운동선수들이 이기게 하기 위해 돈도 대 주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각종 운동 기구도 다 대 준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한없이 대 주셨다.

8. 우리는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서, 승리해야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최고로 뛰고 달리고 최고로 많이 먹는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대 주셨다.

9.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과 온갖 악의 세계를 이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뒷받침해 주시며 투자해 주셨다.

10. 회사에서는 돈만 대 주는 것이 아니라 코치를 세워서 기술을 계속 코치해 준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섭리 신부들을 날마다 가르쳐 주며 인도해 주신다.

11. 섭리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다.

12. 하나님은 이기라고 물심양면으로 대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

13.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지면 그 나라가 저서 패한 자로서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기도록 국가에서 한없이 대 준다.

14. 전쟁이 나면 사람이 총 맞고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제 손실이 간다. 국방비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면 가난해지고 망해 버린다.

15. 북한은 이기면 빼앗아 갈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겨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오고 회복할 만한 것이 없다.

16. 결국 하나님은 시대의 사명자가 승리했으니, 모든 세상도 그와 같은 혜택을 받으라고 이같이 평화의 세계로 뒤집어 주셨다.

17. 우리는 경제를 펴면서 역사를 이기며 왔는데, 소위 인(人)사탄, 가라지들은 북한같이 밥만 먹고 역사를 막고 악평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고로 그들의 경제가 마른 땅이 되고, 사막 땅이 되고, 불모지가 되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18. 주는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하면 축복이 될 것이요,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 한 그 말씀

대로 되었다.

19. 사람이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든 고통이 제일 크다. 아프면 진수성찬도 못 먹는다.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행위대로 치시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고통의 길을 면할 수가 없다.

20. 베트남전쟁은 육신 일생 100년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두고 전쟁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도 싸웠지만, 무엇보다 영이 영원히 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펴며 싸우는 데 40년이 걸렸다. 육적 싸움과는 다르다.

21. 상대를 제압하고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월등해야 이긴다.

22.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시대마다 주시는 그 주관권의 축복을 육으로도 받고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다.

23. 이같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신부로 삼았고, 그들을 휴거시켜 황금 천국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들이 사랑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셨다.

24. 하나님께서 이긴 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마음에 들게 하였다.” 하고 시대마다 말씀하셨다.

25. 승리했을 때 들려오는 말씀과, 패했을 때 들려오는 말씀과, 과정 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다르다. 행한 대로 주기 때문이다.

26. 구약인들은 하나님이 구약 주관권에 오셔서 구약역사를 계속하실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더 좋은 역사를 하기 원하신다. 구약의 주관권의 뜻을 이룬 자들은 신약 주관권에 오도록 해 놓으셨는데, 그 뜻을 못 이뤄서 못 온 것이다.

27. 길에 폭 꺼진 함정이 있다고 하자. 그 부분을 메우든지 채우든지 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그 주관권의 것을 다 행해야 다음 주관권으로 갈 수 있다. 선조들이 못 한 일은 후손들이 메워야 된다.

28. 선생이 살았던 집은 새로운 섭리를 잘 나타낸다. 선생은 월명동에 선조들이 지어 놓은 150년 된 초가집을 때려 부수고 다시 흙벽돌집을 지어서 살다가 또 때려 부수고 새로운 역사를 했다. 개인적으로도 할 일을 못 하면 다음 코스로 못 넘어간다.

29. 3.16 휴거기념관도 그 전에는 천막집이었다. 그러나 때려 부수고 새롭게 지어서 이곳에서 휴거를 이루고 하나의 결혼 예식장과 같이 되었다. 휴거관, 생명의 탄생관, 영혼의 이상적인 세계인 황금 천국으로도 볼 수 있다. 월명동 전체, 하나님의 성전이 그와 같은 격이다.

30. 영원한 세계를 가도록 한 장소이며, 승리의 장소이자 핵심지이기에 월명동이 그리도 가치 있고 좋은 것이다.

31.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한 곳에는 기념관도 세우고, 그곳을 유적지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승리한 장소는 귀하게 쓴다.

32. 30년 전 기도하던 어느 날, 꿈속에 보니 어디서 인기척 소리가 들렸다. 가만히 있으니 공작, 타조, 사슴, 양들이 그 숲을 비집고 계속 올라왔다. 그런데 숲을 비집고 오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서 ‘풀을 빨리 베어 주면 이들이 빨리 올라오겠다.’고 생각했다. 꿈에 본 장소를 가 보니, 풀이 너무 절고 나무가 절어서 그때부터 나무 손질을 하고 풀을 깎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장소를 자꾸 만들어 갔다.

33. 풀만 깎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는 많은 잡초와 가시나무를 없애는 말씀을 전해 주고, 육적으로는 풀을 깎아서 새들이 놀러오게 만들고 사람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게도 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루

며 왔다.

34. 성경 말씀도 영적으로만 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도 풀려야 된다. 성서의 말씀대로 이상세계가 되었다. 6천 년 구원역사 이래 하나님 최고의 뜻을 이룬 제2의 에덴동산이다.

35. 우리 민족은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다.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은 제2의 하나님이 되는 땅에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나라이다. 우리 민족은 유대 종교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 종교의 나라이다.

36.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한 것이 대략 50가지가 된다. 지리학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선상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위도 30~40도 안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구를 사람의 형상으로 보자면 배꼽에 위치해 있는 입장이다. 예수님이 나신 제1의 이스라엘도 서남아시아로 아시아 쪽이고, 이 시대 재림주도 극동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온다.

37.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만 가지도 넘는다. 지리적으로만 따져도 답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따져도 답이 나온다.

38.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지역에 앗수르, 바벨론, 애굽, 갈그미스와 같은 나라들이 주변에서 늘 압력을 가하고 두려움을 주며 “곧 쳐들어간다. 불바다를 만들 것이다.” 하고 매일 협박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으니 착할 수밖에 없고, 함부로 말도 못 하고 욕도 못 했다.우리나라도 한국을 중심해서 일본, 소련, 중국, 북한과 같은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안 하는 것이다.

39. 요한계시록에 “강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다. 기도의 강이 마르면 안 되고, 말씀의 강이 마르면 안 되고, 사랑의 강이 마르면 안 되고, 충성과 진실의 강이 마르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의 강, 서운해하는 강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40.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도 흰옷을 좋아하고,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민족들이며, 민족의 풍속도 비슷하다. 제1의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예수님도,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보낸 자도 그 사상, 정신, 성품, 성격을 비슷하게 가지고 왔다.

41.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 주도 공적 역사를 펴기 전에 항상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자, 병든 자, 거지, 어려움을 당하는 자,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펴며 대둔산 수도 생활을 했다.

42.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한 자들이 시대의 신부가 되고, 승리한 자들이 휴거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노래해야 된다.

43. 행한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갚아 주지만, 구분을 하고서 행하라.

44. 하나님은 승리하신 존재자시다. 하나님은 하늘 역사를 펴도록 우리와 함께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초인적인 몸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 주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45. 지금은 주님을 좇을 때다. 지난날 휴거 전까지는 주가 갖은 모략과 모사와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너희가 주를 좇을 때다. 지금은 주를 좇는 자만 알지, 안 좇는 사람은 모른다.

46. 어디서든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고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주를 좇는 것이다.

47. 6개월 동안 부활되느라 개인까지는 못 살피다가, 이제 부활되고 나서 4개월 동안 전체를 살폈다. 그러고 나니 빨리 섭리역사 40주년의 마지막 뚜껑을 멋있게 덮어야 될 운명이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돌림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우리가 신

부들로서 신부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각 나라별로, 각 교회별로, 각 개인별로 영광을 돌리자. 한꺼번에 한 자리에 와서 다 영광을 돌릴 수 없으나, 이 자리에서 돌리자.” 했습니다. 이제 모두 오는 기간은, “월명동을 막는데 어떻게 와요?” 하기에, “영광 돌리는 기간에는 자유롭게 하여라. 모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곳에서만 다 하지 마라. 출다. 들어갈 곳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각 위치에서 하되, 오고 싶으면 때 지어서 한 번씩 오고 가고 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성령이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는 대로 주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영광을 돌릴 때를 몰라서 못 돌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이런 평화의 세계에 대해,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가장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해야 최고의 감사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막연히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신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대를 모두 책임지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대 영광뿐만 아니라, 생활의 영광을 돌리고 사랑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하도록 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와 민족 위에와 세계 위에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도우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과 쓰이는 모든 것을 다 대 주시고, 함께하신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고마워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충만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늘 신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이보다 젊게 유지할수록 육신으로 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2. 미결수 영들이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영들은 병이 들고,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이를 치유해야 한다. 그러나 완성된 영들은 휴거되어 완성된 세계로 가니까 어려움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이상이 없다.
3. 완성하지 못하면 늦어진다. 병이 들면 늦어진다.
4. 새 차를 완전히 만들어 출고해도, 쓰다 보면 고장이 난다. 그러나 완성된 영혼은 고장 나지 않는다. 하늘나라는 병든 것이 없고, 고장 나는 것이 없다. 완성된 상태에서 하늘나라로 들여보내기 때문이다.
5. 천사는 왜 고장 났을까? 천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고, 사랑을 자녀권에 접목시키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도록 사랑으로 접목을 시켜 신부들로 완성시킨다.
6. 이 세상에서는 새것이라도 쓰면 쓸수록 헌것이 되지만, 완성된 영은 쓰면 쓸수록 이상세계다.
7. 옛날에는 ‘300선’이 되어야 휴거된다고 했다. 그 뒤에 ‘700선’ 휴거가 되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그 후에는 결혼해서 1000선에 해당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다. 이는 이 세상 육신을 가진 변화무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8. 사실상 휴거되어 변화되는 것은 끝이 없다. 700선을 비유하자면 천 미터를 남겨 놓고 700미터까지 간 것과 같다.
9. 인생은 육신이라 늘 미약하고 고장도 잘 나고 마음도 변하지만, 영혼은 급이 높아서 다르다.
10. 항상 육신이 약해서 못 한다. 마음은 육신보다 강하다. 육신도, 마음도 강하게 만들어서 살아야 한다.
11. 선생도 사람인 고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없다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성령이 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잡아 주시고, 성자께서 직접 육신을 쓰고 행해 주셨다.
12. 기도도 어느 선을 넘어가야 자신이 생기고, 말씀도 ‘의심할 바가 없구나.’ 하는 정도의 선을 넘어가야 믿음이 완전해진다. 행하는 것도 조금 해서는 완성에 해당되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자신이 없고, 100% 해야 마음이 놓인다.

13. 시대를 만나서 신앙만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생각, 행실도 기어코 다 완성해야 맛이 난다. 음식을 만들 때도 자료를 다 넣고 끓여 대야 맛이 나듯이, 인생들이 살 때에 행할 것을 다 행해야 맛이 난다.
14. 이 세상에서 모든 법칙을 배울 때는 세상 법칙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니라.’ 하며 배운다. 하늘의 법칙도 그러하다.
15. 법을 만드는 원인은 ‘안전’하기 위해서, ‘서로 편하기’ 위해서다.
16. 간혹, 법을 너무 지나치게 만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주는 교정해 달라고 하나님께 올린다.
17. 일반 사람들이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겪지만, 주로서 겪는 것은 다르다. 머리가 겪는 것이 다르고 손이 겪는 것이 다르듯이 다르다.
18. 기도하고 간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메시아는 타이틀이 있기에 그만큼 혜택을 본다. 안 해 주시면 하나님이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이다.
19.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지면 이는 섭리 신부들뿐 아니라 지구상 전체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못 들은 자, 모르는 자라도 상관없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익하다.
20. 구하는 대로 주니까 잘 구해야 된다.
21. 하나님의 강령을 한 번 맞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22. 상징물은 상징한 사람과 똑같다. 상징한 것은 ‘제2의 그 사람이다.’ 할 정도다. 성자바위는 <6000년 역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는 돌이다.
23. 성자바위에 손대고 기도할 때 폐병이 나아 버린 자도 있다. 성자가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니, 성자가 능력을 부리신 것이다. 그 영이 역사하면 바로 그만큼의 효과가 난다.
24. 상징하는 것을 잘 살피고 잘 관리해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몸이요, 주의 전이다.
25.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구하라’는 말을 사업가도 잘 듣고, 신앙인도 잘 듣고, 지도자도 잘 들어야 한다.
26. 구해야만 준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구해서 약속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27.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은 자연 법칙은 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뜻 안에서 나무를 가져다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몸소 행해야 이루어진다.
28. 합당한 것을 구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약속을 하신다.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서 그 약속이 크게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29.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시대가 와서 주셔도, 받아들인 사람만 메시아를 만나고 시대 역사를 펴 나간다.
30. 땅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고로 복음도 상대가 죽기 전에 빨리 전하여라.
31. 육신의 몸이 다 죽어가고 숨이 넘어가는 마당에 주를 믿으라고 하며 부끄러운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 말의 총, 몸의 총, 행동의 총을 쏘며 복음을 전하여라.

32. 주와 같이 하는 자들은 싸워 이기리다. 각오하고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싸우면 이긴다.
33. 구해야만 주신다. 그러나 구한 것에 대해 약속을 받았어도, 유대 종교인들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아둔해서 메시아가 왔어도 못 받아들였다.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셨는데, 앞의 사람이 악평한다고 같이 악평하다가 그와 같이 되었다.
34. 하나님은 충분히 다 주시는데, 인간이 못 한다. 지금도 이 시대에 계속 부어 주시는데,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달리면서 빨리빨리 하지 못해서 얻을 것을 못 얻은 것이 많다.
35.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많이 행해야 된다. 새벽부터 최고로 뛰어보면 안 뛰었을 때와는 많은 것들이 좌우된다. 고로 사람이 건강해서 힘 있게 많이 뛰어야 많이 얻는다.
36. 건강해야 부귀영화도 누린다. 건강하지 못하면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도 누릴 수 없다. 육신이 건강해야 하늘로부터 받을 것을 제대로 받고, 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37. 아무리 애인이라도 구해야 준다. 구하지 않았는데 주면 그 가치를 모른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리적으로 원했을 때 줘야 감당하도록, 만물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을 정하여 놓으셨다.
38. 원한다는 것은 그릇을 내미는 것과 같다. 물을 주는데 그냥 받으면 10년을 줘도 물 한 방울 안 남는다.
39. 원하고 바라는 것이 간절할수록 좋은 그릇이나, 더 좋은 금 그릇이나가 결정된다.
40.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 때는 금 그릇을 내밀어야 주신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랑을 포함해서 구해야 된다. 그럴 때 감동이 되면 주신다.
41. 현재까지 자기 몸을 유지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수백, 수천 가지로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수천 가지 도와준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다.
42.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자는 사망 땅으로 가는 몸이 되어 즉시 고생하고, 하나님은 그 후에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터전 위에 축복을 주신다. 뒷사람이 조건을 세우고 나아오면 앞사람이 못 받은 것까지 축복을 다 주신다.
43.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된다.
44. 선생은 욕에 있을 때 하나님께 수만 번씩 감사했다. 잠도 안 자고 감사 기도를 하고, 하루 종일 눈물이 나거나 하루 종일 웃어지기도 했다. 최고로 극적으로 조건을 세울 때 휴거 역사가 일어났다. 자기 자식 챙기기도 힘들고, 자기 애인 챙기기도 힘든데, 원수를 위해서까지 눈물을 흘리며 최고로 조건을 세워 주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도를 해주었다.
45.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도 같다.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 애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주면 짐승과도 같은 것이다.
46. 선생은 예수님이 고통받고 눈물 흘린 것을 깨달았고, 지구가 흔들리듯 한숨을 내쉬는 것을 알았다.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왔는데, 기다리던 사람이 죽이다니 억울하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원한을 풀겠다. 그러나 내 육신은 다시 오지 못하니 대신 해 줄 자가 필요하다.’ 하는 그의 마음을 깨달았다.
47. 애인 시대를 펴 나가려면 기독교에서 애인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을 죽도록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

48.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알아라. 그와 같이 이 민족이 회복이 되면 인자가 온 것을 알아라.

49. 사랑 하나로 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채워 드려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50.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도를 차고 넘치게 행하지 않으면 경제 축복이 안 된다. 그다음은 메시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51. 암행어사의 한마디면 끝난다. 그같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가 제일 크다. <메시아>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죽이기도 한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리기도 하고, 가장 많이 죽이기도 하는 자는 '사령관'이다.

52. 메시아는 지구상 가장 많이 구원시키고, 가장 많이 멸하기도 한다.

53. 금주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 지나가니 꼭 구하라. 하나님이 꼭 줄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다.

54. 매일, 매 시간마다, 매초마다 구해야 준다.

55. 아픈 자도 구하라. 어려움이 있으면 구하라. 해결해 주리라.

56. 성지 땅을 위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전은 곧 주다. 주를 건드리지 않게 기도를 많이 하라.

57. 주와 같이, 진실로 처음부터 나중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변화되어 휴거의 영이 되고,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황금 천국에 가도 아깝지가 않다.

58. 주께 고하라. 그러면 즉시 해결되리라.

59. 주께 잘 보이면 팔자가 변한다. 아브라함에게서 축복이 나가면 축복이 되고, 저주가 나가면 저주가 되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떠나게 됐는데, 이들이 잘되고 형통되며, 신부 교회, 성령 교회라고 했는데 잘 지키고, 그 뜻을 깨닫고 교회 이름만 성령이라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정말로 모시고 섬기고 나와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아양 떨고 재롱떨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역시 주께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것 간구해서 얻을 것을 얻어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이 교회로 오도록 해 주시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라고 할 정도로 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줬는데 왜 못 하나? 고로 이 교회 다녀 보라고 멋지게 소개하며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기분 좋다. 그냥 환경만 봐도 기분 좋고 너무 좋다." 그렇게만 해도 온다는 거야. 모두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단이다 뭐다 해도 그거 전부 다 모두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중심해서 온 섭리의 나라들, 각 교회들이 잘되고 형통되고, 많은 생명들이 전도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는 반드시 각 교회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즉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니 구하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주에 구해서 얻도록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더욱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봐라. 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문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문이 아니냐?" 했으니, 영광과 존귀로 더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잘되고 형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잘 지키고, 내 몸 된 교회를 잘 살피며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축복을 잘 받고 얻을 것이다. 경제를 펴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모두 구하고 찾고 정말로 중심이 서 있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신다.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잘 지도해 나가고 잘 운영해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환난이 다 해결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와 섭리사의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픔을 해결치 못하면 죽으니까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은총을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충만하시옵소서. 내 말을 생명이니 지켜라. 그냥 모르

고 내가 하는 얘기 아니다. 나를 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지키고 지킬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8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항상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고, 찾을 것도 있고, 문을 두드릴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도 있다.
2.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된다.
3. 사람에게 구할 것은 사람에게 간절히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구하라. 사람은 말을 안 하면 모르기 때문이다. 자꾸 속 얘기를 하고, 겉 이야기를 하라.
4. 주께만 이야기하면, 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기가 어렵다. 주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스스로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잘 보이기 위해서 주니, 역지가 되기도 한다. 고로 본인들이 잘해서 본인들이 얻어야 된다.
5. 예전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목시를 받아 주었더니, 해당되는 자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목적지로 가고 있다. 그 사연을 하나님께서 노래로 주셨다. 깊고 깊은 사연이다.
6. 선생은 하나님께 누구보다 많이 구했다. 어려움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이야기하고 사연을 말하면서 하나씩 막힌 문을 열고 마음을 돌이켰다.
7.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스스로 나올 힘이 없다. 주가 구원시키고, 죽음에서 살려 준다. 주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지나갔기에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다.
8. 자기 환난과 어려운 날은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이끌어 주셔야 한다. 그러나 '주'라도 말을 해야 안다.
9. 사람에게 구할 것도 있고, 사람에게 구할 필요 없이 자기가 혼자 구하는 것도 있다. 만물 속에서 찾는 것은 자기가 쫓아다니며 찾아야 한다.
10. 기본은 자기 책임 분담이다.
11. 주는 주가 챙기는 사람을 신경 써 주고 챙겨 줄 때 좋아한다. 그 사람을 챙겨 주면, 챙겨 준 자가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고, 심판의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사람은 왕 앞에 가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
12. 만물한테 구할 것은 본인이 찾고 구하고, 사람에게 구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사람에게만 구하면 안 된다.
13. 모든 일은 우연이 없다. 다 뜻이 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무지 속의 상극 세계가 된다.
14. 깨닫는 것이 늦으면 성령께서 “생각 잘 나게 기도 받아.” 하신다. 즉석에서 빨리 깨달아야 죽음을 피하고, 무지 속의 상극 세계를 벗어난다.
15.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께 구하고 찾고, 성자에게 구하고 찾아라. 어떤 것은 하나님께도 구하지 말고, 성령께도 구할 것이 없고, 주께 바로 와서 구할 것이 있다.

16. 욕에 있을 때, 주께 구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 자들이 많았다. 그때는 5배, 10 배씩 뛰며 최대한 시간을 내주었기 때문에 누구든 구한 대로 주었다.

17. 주께 구하면 주는 하나님께 바로 올려 버린다. 그런데도 구하지 않는 것은 주를 모르기 때문이다.

18. 합당한 것을 구하면 주는데, 합당한데도 구하지 않는 자가 많다.

19. 예전에 누가 모델과 교수가 되고 싶은데 한국에는 모델과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만들어 주겠다. 섭리사에서 모델 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크기만 하여라. 하나님께 구해 놓았다.”라고 했다. 그 후로 한국의 대학교에 모델과가 많이 생겼다.

20.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망권에 사는 자들은 사이코와 같다. 날고 기는 재벌이라도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들은 모두 사망권에 있다. 그러니 지능이 낮아서 돈도 제대로 못 쓴다. 영으로는 돈을 한 푼도 못 가지고 간다.

21.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간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고, 어떻게 성령과 같이 하라고 말씀해 줬으니, 일을 함이 합당함을 믿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해 주시고, 한국을 중심한 세계 각 나라 모두 부지런히 찾고, “생명도 찾고 두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간구도 하고, 전도하려면 본인에게 이야기를 깊이해 보기도 하라.”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자는 어제 순회 때 왔는데, 그 친구가 소개하기를 1년 만에 자기 친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보고받을 때 자기 친구에게 남자 생겨서 어렵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역시 “한번 설득해 봐.” 했는데 설득해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놔둬 버려. 때가 되면 올 것이니까.” 그랬는데, 결국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남자 사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지쳐 버렸어요.”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봤는데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도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보고하지 말고, 의식해서 보고하지 말고. 그래서 그에게 이제 다시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두를 자꾸 만나 봐야 알고, 구해 봐야 알고, 찾아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갑자기 감동돼서 선생님이 거기 왔다고 해서 자기도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도하며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가 올 수가 없는데 성령이 보내 줘서 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번 주에 구하는 기간이다. 찾는 기간이다. 문을 두드리는 기간이다. 모두 말씀을 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픈 자를 고쳐 주시는 것은 안 믿으면 안 고쳐진다. 그러나 주의 손이 가서 뼈가 돌아간 것을 고쳐 주는 것은 안 믿고 의심해도 손이 가기만 하면 고쳐진다.

2. 구하는 기간에 아픈 자들이 구하기에 고쳐 줬다. 병원에 가서는 현장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못 한다. 아픈 것이 2~3 개월씩 지속되며 오래가기 때문이고, 돈을 1200~1300만 원을 쓰고도 안 고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가 손을 대면 현장에서 즉시 고쳐진다.

3. 턱이 한번 빠져서 근육이 옆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신경이 그리로 발달되고 근육이 그쪽으로 잡아당겨지기 때문에 근육 자체적으로 자꾸 돌아간다.

4.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신 것은 해 주신다는 것이다.

5. 의학 강의를 해 줘야 본인 스스로 의학을 알고 다스린다. 의사들만 의사가 아니다. 누구라도 의사가 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스릴 수 없다.

6. 육신의 의사도 돼야 하고, 신앙의 의사도 돼야 한다.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은 영, 육 두 가지에 다 해당된다.

7. 선생도 의사만 의지해서는 이와 같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스스로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55년 동안 대체 의학을 공부했다.
8. 대체 의학은 ‘의술을 대체’ 해서 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침술이 발달되어서 침으로 체한 것을 내린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침술 대신 운동이 발달되어 얹힌 것을 뛰어서 내린다.
9. 외국에 있을 때도 병을 고쳐 줄 때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했다. 그것으로 서로 대화가 되게 만들었다.
10. 한번은 독일에서 중풍으로 인해 손이 굳어서 안 펴지는 자가 있었다. 선생이 병원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양쪽 손을 주물러 줬더니 현장에서 손이 펴지면서 맘대로 움직이게 되었다. “그대로 나왔으니 걱정하지 마라.” 했더니 너무 신기하게 생각했다.
11. 또 한번은 어린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다 죽어 가는데 선생이 “기도해 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하고 기도해 주니 그 후에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잘 크게 되었고, 그것을 두고서도 “기도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며 참 신기하다고 했다.
12. 이는 마치 음식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주방장은 이것저것 가져다 쉽게 만들어 버린다. 선생은 다 먹고 버리는 음식을 자료로 해서 만들어도 사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만든다.
13. 병 고치는 사람이 손대면 금방 고쳐진다. 다른 사람은 엄두도 못 내지만 뼈를 맞춰 주는 자가 건드리면, 못 일어나던 자라도 금방 뼈를 맞추니 바로 일어나서 걸어간다. 배우면 그와 같이 된다.
14. 의사들은 얼굴만 보고도 아픈 자를 찾는다. 운동선수들은 다리를 보고 걸음을 보면 무슨 운동을 한 사람인지 안다. 종교인들은 상대가 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고, 군인들은 상대가 군인인지를 본다. 이와 같이 자기 직업대로 본다.
15. 노느니 배워라. 생각을 놀리지 말아라.
16. 가장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가장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번다.
17.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은 유능하니 손만 대면 낫는다. 신유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병 고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면’ 병을 고쳐 준다. 그러나 ‘안 행하면’ 그 사명을 안 한 대가를 받아서 본인이 아프게 된다.
18. 인생을 늙지 않고 젊게 관리한 것도 큰 성공 중의 하나이다. 젊게 하려면 건강해야 하고 아프지 말아야 한다. 건강하지 않으면 세포가 자꾸 죽으니 쉽게 늙는다. 선생은 건강하기 때문에 인생을 젊게 사는 것이다.
19. 아프고 수술을 자주 받으면 얼굴을 제대로 펴 수 없고 유지할 수도 없이 자꾸 늙어 간다. 건강해야 늙지 않는다.
20.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마치 나뭇잎에 영양을 주는 것과 같다. 잎사귀에 퇴비하는 정도는 잎사귀만 조금 싱싱하게 할 뿐이지 나무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다. 그러나 아예 나무 밑을 파서 거름을 주어 나무에 영양을 주면 나뭇잎도 좋아진다.
21. 건강도 속에 있는 병을 고쳐 주고, 근본적으로 배가 부르도록 먹어야 영양이 확확 올라온다.
22. 나무에 물을 줘서 뿌리를 적시게 하는 것도 크지만, 비가 와서 근본으로 땅이 젖어야 나무가 충분한 수분을 빨아 먹는다. 이와 같이 사람도 바르는 것은 먹는 것을 따라갈 수 없다. 꿀을 가지고 얼굴을 좋게 할 경우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는 30%, 먹는 것이 70% 효과가 있다.

23. 어제 하나님께서 선생을 통해 아픈 자들을 고쳐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된다.
24.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을 매일 먹어야 된다. 그 약은 ‘음식’이다. 음식을 매일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된다.
25. 음식에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음식으로 병이 없어지기도 한다.
26. 고민하고 걱정하느라 뇌가 잠을 안 자게 되면 잠이 안 온다. 그러나 걱정을 주께 맡기면 잠이 온다.
27. 하나님이 “월명수를 마셔라.” 하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다.
28.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된다. 건강에 관한 것은 자기가 꼭 해야 된다.
29.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30. 주는 세상의 진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의 진찰기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꿰뚫어 봐서 아이큐까지 다 짚어 낸다.
31. 세상 의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주가 배운 의학은 정확하다.
32. 약을 먹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무를 심어 냈는데 물을 한 바가지 뿌리는 격이다.” 하신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면 큰 효과가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 약을 먹었으니 나을 거라고 생각을 돌릴 뿐이다.
33. 의사가 고쳐 준다고 생각하면 신경이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와 같이 아픈 것이 낫는 데는 심리적인 것도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빨리 낫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돌리기 때문이다.
34. 어떤 자는 15년 동안 병원에서 1300~1400만 원을 쓰고도 병이 안 나았고, 월명동 약수를 배가 터지도록 오랫동안 먹어도 안 낫는다고 했다. 그런데 선생이 손을 대어 뼈를 돌려 버리니 한 번에 나았다. 다만 그동안 약수를 마신 것으로는 내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35. 하루는 기독교에서 물 연구하는 자가 와서 월명동 약수에 대해 말하길, “이 물은 20일 동안 먹으면 백내장도 낫는 정도의 성분이 들어 있는 아주 귀한 물입니다.” 하고 얘기했다.
36. 말이 실상이 되어 병을 낫게 하기도 한다.
37.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지구상에 병으로 수한 전에 죽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우리나라에는 5명에 한 명씩 암이 있다고 할 정도다.
38.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100명을 확인해 보니 80명 이상이 아픈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도 본인이 모른 것이다. 의사들이 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고,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적인 세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오히려 비정상이 되기도 한다.
39. 섭리 사람들도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 관리의 병이 든 사람도 있다. 그런데도 잘 모른다. 설교하는 교역자인데도 병이 든 자가 있다.
40. 신앙의 병도 고치고 육신의 병도 고쳐서 건강해야 된다.
41. 몰라서 관리를 못 한다.

42. 건강은 여자들이 화장하는 정도로 자주 신경 써야 된다.

43. 화장품으로 여드름 난 것을 가리기만 하지 말고, 싹 닦고 약수에 담그고 깨끗이 해야 된다.

44. 이와 같이 죄도 가리려고만 하지 말고 회개해 버리고 끝내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여 청산하면 축복을 주시니 잘된다.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다 털어놓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꼬치꼬치 물어보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

45. 건강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고, 뛰기도 싫고, 걷기도 싫고, 집에서 나오기도 싫어진다. 종일 가만히 누워서 주는 밥이나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46. 건강을 잃을수록 더 뛰고 달리면서 도움이 되는 나무뿌리라도 캐다 먹어야 한다. 자꾸 해야 낫는다. 그와 같이 신앙도 살피라.

47. 어떤 자는 늘 머리가 아픈 신경병이 있어서 선생에게 기도받으려다가, 옆 사람이 기도받을 때 같이 병이 나았다고 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들에게 “건강의 의사들이 돼라. 육적인 의사들도 되고 영적인 의사들이 돼야 한다. 자기가 수시로 날마다 살피라. 의사들도 아픈 것이 있더라, 자기 못 살피면 그러하다.” 했습니다. 오늘 이들 중 모든 아픈 자들이 아까 손을 들 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쇼크를 받을 정도로,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손든 것을 하나님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님 보셨으니 이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주시사, 일단 기도로 나올 자들은 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건강케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내적인 병과 외적인 병들이 고침 받고, 마음의 병도 고침 받고, 생각의 병도 고침 받고, 뇌가 이상한 사람도 고침 받고, 신장, 간장, 비장, 그리고 대장, 소장, 모두 건강하게 해 주고, 뼈와 모든 살들 이런 세계까지 건강케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차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병들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병. 모두 씻고 닦고 뜨겁게 하면 낫는데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 강의를 듣고 건강 공부를 하면 해결되듯이, 시대의 길을 찾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들도 말씀을 듣고 배우면 역시 알고 스스로 해결하듯이, 이들에게도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고 가르쳐 줘서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 많이 있사오니 건강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건강을 책임지고 해 보니까 역시 본인이 해야 될 것, 그리고 모든 본인이 의사가 돼야 될 것, 그리고 본인이 자기 병을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할 돈이 없으면 뛰고 달리면서 해결할 것, 운동으로도 해결해야 될 것, 어느 때는 양약으로 해결할 것, 어느 때는 한방으로 해결할 것, 어느 때는 신앙으로 해결할 것, 어느 때는 기도로 해결할 것, 어느 때는 약수로 해결할 것. 이런 것들이 분야, 분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긍휼과 자비를 더하사 이들이 병과 고통과 어둠에서 나오도록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3.16휴거기념관의 소강당에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들마다 아픈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사오니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도 수만 번을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도 형통하게 기도하였으니, 이 모든 기도로 인해 이들도 같이 기도해서 채워져서 건강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암이 전신에 번져서 죽을 날이 불과 뭐 몇 달도 안 남았다고 병원에서 그런다고 하는 자도 있었지만, 만군의 하나님! 별의별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 억울하게 죽는 것이 너무 억울하오니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러 왔사오니, 이들을 모든 죄에서 구하고, 모든 병에서 구원하고, 각종 각색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할 것을 위해 그동안 가르쳐 왔사오니 이들이 건강해지도록 기도하오니 강건함을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요 악령들이 아프게 하는 것도 있사오니 모두 멸하고, 이 악한 영들과 악령들을 나와 이들과 아픈 자들이 멸하며 기도하여 없애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내가 낫기를 기도하니 모두 건강해지고 건강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불길 같은 역사로 또 이들에게 함께하사 건강하기를 기도하오니 모든 섭리나라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그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충만히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2.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 줄 때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드릴 때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시대 합당한 일을 할 때 가장 좋아하신다.
3.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 고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와 함께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4. 하나님은 <주>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주>를 통해 말씀하시며 행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들은 <주>와 함께 행하라. <주>와 함께 모으고 <주>와 함께 헤치며 <주>와 함께 항상 행해야 된다. -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
5.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해 드리는 것이다.
6. 사람이 저마다 원하는 것을 받을 때 ‘복’이라 한다. 원치 않는 것을 받는 것은 ‘화’다.
7. 홀로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살지만, 결혼 했을 때는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도 생각하며 행해야 된다.
8.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며 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는 홀몸이 아니라 사랑의 주체이자 사랑의 핵심자가 계시니 그가 원하는 대로 해 드리는 것이 <복>이다.
9.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시고, 낙으로 생각하신다. 고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합당한 것을 주리라. 주는 것이 나의 낙이니라.”하신다.
10.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면 별의별 것을 다 구한다.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하니 일반적인 것을 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청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앞날에 대해 얻어야 될 것, 자기가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를 은밀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신다.
11. 선생이 껴어보니, 모르는 만큼 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필요한 것을 구했다. 늘 시간을 귀하게 잘 쓰게 해 달라고 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각종 각생의 일들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전도되게 해 달라고도 구했다.
12. 선생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합당한 것들이라고 하시며 다 해 주셨다. 선생이 하나님께 말하길 “여러 가지로 구했는데, 알고 보니 다 주셨네요.”했다. 이제는 다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구해야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13. 그 많은 것을 얻을 때까지 엄청나게 뛰고 달리고 조건을 세웠다. 어느 때는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 앓는 소리가 산을 울릴 정도로 앓기도 했다. 이것이 복인지, 고달픔인지, 역경인지 생각될 때도 있었다. - 이런 것을 조종을 잘해야 된다.
14. 하나님께 많이 구하기도 하지만, 구하고 입만 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만큼 조건을 세워야 얻게 되기 때문에 어렵다.
15. 사람이 살면서 잘 조종하고, 잘 파악하고, 잘 판단하고,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
16. 주는 하나님의 뜻을 중개해 주고, 하나님의 생각과 반응을 중보해 주니 늘 생각이 높고, 많이 안다. 그러니 주께

늘 물어보고 얘기를 하라. 그런데 어느 때는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할 때가 있다. - 이는 너무 갑자기 물어보거나 생각을 깊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17. 판단을 잘 하라. 급하다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

18. 전체가 같이 살기 때문에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같이 사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된다. 지도자는 무한히 생각이 깊어야 하고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된다.

19. 두 가지만 생각해도 '천재'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 '만재'다. 네 가지까지 생각하면 '억재'다. 네 가지를 생각하면 억제할 것이 너무 많다.

20. 주는 '기묘자'다.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선생 "하나님은 정말 기묘하시다." 하니, 하나님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자주 하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21.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남'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알게 된다.

22.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은 잘 모른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행하시고,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시고, 또 저마다 구원을 받는 자를 통해서 행하신다.

23. 생명을 사망에서 나오게 할 때 스스로는 못 나오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를 이끌어내시거나 직접 그 마음을 감동시켜 행하신다.

24. 성령님은 "늘 나는 너를 도울 때나 사람들을 도울 때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하신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을 못 하면 자기도 못 하거니와 만인도 청중도 못 하게 된다.

25. 인간의 뇌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과 같이 엄청나게 생각을 하지 못 한다.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난다.

26. 신은 전지전능해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보고서 생각하신다. 눈으로 보니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27. 우리가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도 성령도 여러 가지로 행하시며 '보게' 하시어 '생각나게' 하신다. 어느 때는 뇌에서 아련히 생각이 날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뇌에 생각의 메모리, 단어의 메모리를 끼워 줘서 생각나게 하신다.

28. 한번은 성령이 "누구에게 편지 써줘라." 하고 감동 주셔서 편지를 써 줬는데 그가 자살해서 죽기도 했다. 왜 그런지 기도해보니 '편지가 전달되지 않아서'였다. 받은 자가 읽어보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전달을 안 한 것이다. 정신적인 영의 주관을 받던 자였는데 편지를 못 받고 희망이 없으니 그리 된 것이다. 편지를 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29. 성령은 "누가 자살한다." 하고 감동을 주지 않으신다. 다만 "편지 써 줘라."하고 감동주고 생각나게 해 주실 뿐이다.

30. <옥에서 써준 편지>가 그리도 컸다.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게 해주기도 하고, 희망의 편지도 주고, 각종각색의 필요한 말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전해주었다. 그런 편지가 옆에서 볼 때는 별 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해당되는 사람에게서는 마치 '바다에 빠져 있는 자에게 밧줄'과도 같은 것이었다. 편지를 못 받은 것은, 마치 밧줄이 건네지지 않은 격이다.

31. 지금도 다 죽어가는 자, 오해하고 잘 모르는 자에게 사람을 통해 선생의 말을 전해주면 다시 살아난다. 신앙이 금방 죽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사랑하는 선생이 얘기해 주면 모르는 체하고 다시 살아난다.
32.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실망도 되고 꿈도 깨지고 마음만 아프고 괴롭지만,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깨닫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도 된다.
33. 하나님의 시대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다. 예수님 때도 “내 말은 생명이니 꼭 지켜라. 꼭 전해줘라. 힘들지만 꼭 해야 된다.”하고 말씀하셨다.
34. 선생도 힘들지만 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나고, 안 될 것이 되게 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게 되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행해보아라! 그렇게 했을 때 되었다!
35. 흔히 보면 자기가 몸부림쳐 해 보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 해 봤는데도 계속적으로 존재를 못 한다. 이는 <자기 생각 실천>이기 때문에 한계에 바로 부딪히는 것이다.
36.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실천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계속 시동이 걸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하나 잘 보고 잘 판단하고 행해야 된다. 두 가지, 세 가지를 생각하고 행해야 한다.
37.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거나 몰라서 무지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
38.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자기의 생각, 주관, 뇌의 반응이 주의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 전해진다는 것이다. CC TV로 다 보고 있다. 그러니 주 앞에 말을 잘 하고 행하여라.
39.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의로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 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도 앞날을 생각하면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40. 구해도 잘 안 되는 원인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해도 안 줄 때가 있다. 이럴 때 잘 못하면 시험이 든다. 조건 기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41.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못 한다. 그러나 스스로 깨닫고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행하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상이 되었으니 그도 <신>이라 한다. 하나님은 이같이 스스로 하는 자들이 되어 완전한 자가 된 것을 좋아하신다.
42.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행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
43. 사람이 모를 때는 엄청난 실수를 한다. 완전히 정반대되는 세계에 있다. 기성인들은 모르니 정반대되는 세계에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 깨우치고 그냥 두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데서부터 계속 행하며 나가신다.
44.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하고 좋아하심으로 이끌어갔던 구약역사인데도, 하나님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그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안 믿으면 사망으로 간다. 그동안 믿은 것은 준비기간이다.” 하고 한 마디만 해 주셔도 믿었을 것인데, 왜 안 하셨을까?
45. 이에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해 주었다. 그러나 본인들이 교만하고 신앙이 죽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자들이었기에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감동을 줘도 받지 못하고 성경과 율법을 무시하며 대하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무시하면서 대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다.” 하셨다.
46. 평소 사람들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깨우쳐 주시는데, 사람이 신앙이 썩어서 죽음의 잠을 자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확인했다.

47. 하나님은 충분히 얘기해 주시며 깨우쳐 주신다. 충분히 얘기를 했어도 안 하는 자들도 있고, ‘왜 나를 안 깨우쳐주시지?’ 하는 자들도 있다. 그동안 전한 2만 번의 설교를 다 듣지 못했어도 주일 설교를 몇 번만 들어도 다 알게 된다.
48. 주를 ‘형제’로 보든지, 주를 ‘일반적’으로 보고 말씀을 대하면 그만큼 손해가 간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도 받게 된다.
49. 성경에 말씀하고 예언한 것은 내 일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 한 명만 있어도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퍼 나간다. 지구상 모든 자들에게 얘기해 놓고 역사를 펴지 않으신다.
50. 그 때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 사람에게 얘기했으면 끝나는 것이다.
51.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여러 가지로 예언한 것들이 있다. 그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이 시대에 실행하고 있다.
52.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다. 우리 역시 모를지라도 손해 간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밖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고, 하나님은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많이 손해 간다.
53. 구약시대 때 예수님 때를 두고 산이 울리고 강물이 흘러가듯 희망적인 말들이 많았다. 언제 행하셨나 했더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셨다.
54. 모든 사람과 같이 이루고 갈 일인데 예수님만 행하셨다. 세상이 험하면 험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예수님도 그리 대하면서 행하셨다. 고로 “내가 다 이루었다. 넓은 길로 간다고 했으나 세상이 대하는 대로 좁은 길로 왔다. 그래도 나는 성서를 다 이룬 것이다.” 하신 것이다.
55. 인간이 믿고 행하면 십자가를 안 지고 ‘영광의 주’로 살게 되고, 사람들이 제대로 못 하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주’로 역사를 펴 나가는 것이다. 양면 예정이다.
56.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의 주’가 ‘고난의 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희생한 다음에는 ‘영광의 주’로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한 말씀을 이루며 간다.
57. 목숨을 걸어놓고 매일 연구하고 노력해야 겨우 주를 모시고 주의 뜻을 펴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거의 모르고, 끌고 가면 그제야 따라온다.
58. 기독교는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서도 역사를 이루며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관리했으면 70세, 80세까지도 살면서 갔을 것이다.
59. 메시아는 하나만 틀려도 메시아가 아니다.
60.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다. 하나님께 바친 음식을 하나님이 그 육신 되는 자를 통해 먹은 것이다. 어느 때는 메시아도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버린다.
61. 하나님께 늘 ‘생각나게 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생각만 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노선을 타고 가야 한다.” 하신다.
62. 기쁨의 극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완전히 생각도 다르고 행위도 달라진다.
63. 주는 각자의 개성대로 인도한다. 약하면 약한 대로 인도하고 강하면 강한대로 인도하는 법이다.

64. 하나님은 단계별로 좋아하신다. 더 크게 할 때 더 좋아하시고, 더 바짝 따를 때 더 좋아하신다.

65. 예수님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큰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대민족에게 더 큰일이었다. 이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것도 크지만 주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큰일이다.

66. 주를 부끄럽게 증거 하면 주도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소개하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사람마다 영광이 다르니 그렇게 함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시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근본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걸 행할 것. 그렇게 행하는 자가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미련해서 잘 모릅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하고 원하면서도 그걸 몰라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친 대로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민족과 우리 섬리 세계, 날마다 최고 이상적으로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각각 인도해야 되리니,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열음을 줘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줘서 뜨겁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기 처지에 따라서 대하신다 했습니다. 사실상은 하나님은 네게 이렇게 대해 주는 것이 근본 뜻이지만, 네가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대해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네가 크고 더 이상적이면 더 이상으로 대해 준다 했습니다. “건강하게 행하라. 이상적으로 행해라.” 그래서 날마다 바다의 상어처럼 고래처럼 힘차게 행했더니, 하나님은 그 위에 역사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약하게 행하니, 그에 맞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뜻이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더 크게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알고 행하라! 나의 심정을 알고 해라! 메시아의 마음, 심정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 높은 단계에서 역사를 이루며 간다 했습니다. 깨닫고 행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 하고 많은 사람들, 때도 안 맞고 메시아로 할 일도 하지 않고, 성경도 제대로 풀어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두 하나님 뜻을 뭇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 그것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지구촌에 없고, 다만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는 “영원히 산다. 아담하와가 죽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았다. 그대로 생육신이 돼서 몸이 영으로 변하면서 그대로 영원히 살았다.” 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제대로 풀고 나아가야지, 어떻게 그래야 성경의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할 것은 “지금보다 더 높이 뛰도록 하라. 구한 것을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 자체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하신 말씀’이다. 고로 영원한 말씀이 되고 확실하고 믿을만한 근본의 말씀이다.

2. 하나님은 항상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급’의 극의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 때는 선지자 급의 말씀을 해 주시고,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 급의 말씀을 해 주시고, 목사들에게는 목사를 통해 성령으로 감동시켜 말씀해 주신다.

3. ‘누가 그 말씀을 하셨나?’가 중요하다.

4. 그 말을 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믿을만한지, 어디까지 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5. 이 시대도 하나님은 주를 통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연구해야 한다.

6. 구하라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자기’를 통해서 이해하면 된다. 만약 동생이나 친구나 부인이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자에게 “내게 구해라.” 하는 것은 그만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구하는 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7. 선생이 “구하라.” 한 것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선생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선생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구하니,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물어보고 구해 준다.

8. ‘구하라’ 한 것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안다. 꼭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안 구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신 것이다.

9. 본인이 구할 것은 본인이 알고, 모르는 것은 성령께 기도하면 깨우쳐 주시고, 주께도 물어보면 깨우쳐 준다. 무엇을 구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못 구하는 것이다.

10. 선생이 10대 때 구한 것을 이제 받는 것도 있다. 그때그때 구하는 대로 즉시 주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어 합당할 때 주시는 것도 있다.

11. 어린 아이가 차를 구하면 어렸을 때는 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구해도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귀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이 왔을 때 주신다.

12. 하나님은 <때>의 하나님이시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다.

13. 성서의 요셉은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꿔다. 그 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왕의 꿈을 풀고, 왕 앞에 꿈을 받고, 왕의 인도를 받고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에도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형제들을 테스트 해본 다음에야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14. “내가 ‘주’다.” 할 때는 이미 테스트를 한 것이다. 자신 있을 때 <주>라는 것을 밝힌다. 주는 께뚫어본다.

15. 유대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절대적인 교리를 뒤집어엎을 만한 말이 없다. 오직 메시아 한 명만 그 말을 뒤집는다.

16. 다윈의 진화론을 뒤엎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 원숭이가 5만년이 넘으면 사람이 된다고 한다. 사람은 학자라도 잘못 볼 때는 99% 잘못 본다.

17.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이론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영이시기에 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8.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 이 시대도 말씀을 안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시험 든다.

19.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과 화면으로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아무리 극적으로 사랑해도 메시아를 직접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다. 고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자는 꼭 와서 들어라.

20. 겨울에 불을 가까이 쬌는 것과 화면으로 불이 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이가 많다. 성령집회도 현장에서 불을 받는 사람과 그 외에서 불을 받는 사람은 다르다.

21. 이와 같이 현실과 미래는 다르다. 과거와 현실도 다르다.

22. 빌립은 “주를 보니 기쁘더라. 주를 안 보니 안 기쁘더라.” 하고 말했다. “그러니 주를 보여 주소서. 하나님을 보여 주소서.” 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는 본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비춰볼 수 있다.

23. 주의 근엄한 모습은 하나님의 근엄한 모습이다.

24. 메시아가 민족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넘어간다. 주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100%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25. 대한민국에 계시 받는 자, 날고 기는 선지자들까지 모두 전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사막에서 폭탄 실험을 했고, 한국도 북한도 전쟁준비를 했다. 하나님 역시 “전쟁 이루어진다.” 하고 최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셨다.
26. <주가 악평과 핍박을 참으면 전쟁이 없을 것>이라 했기에 주는 전쟁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본래 약속은 이미 깨진바 된 것이었다.
27.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절대적인 나 여호와와 법칙이라 막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면 모두 멸망으로 가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다.
28. 죄가 관영했을 때는 죄를 없애지 않으면 모두 사탄 주관권의 세계로 간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만 된다. 전쟁을 해서 육은 대가를 받고 영으로라도 구원받는 역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29.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 지구상의 죄를 없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북한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죄로 보지 않는다. 그 나라에서 최고 영웅적인 일로 보고, 자기 민족이 사는 길로만 본다.
30. 미워하고 살인한 자는 잡혀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모르니 회개를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워하다보면 사람을 죽이게 된다.
31. 메시아는 너무 원통하고 숨이 안 쉬어지게 답답할 정도로 이 죄를 깨달았다. 기독교도 이 엄청난 죄를 회개할 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시대 메시아를 불신한 것이 살인한 것임을 모른다.
32. <죄인>으로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의인>만이 죄를 대신한다.
33. 기독교는 주를 미워해서 십자가를 지게 했으니 살인한바 되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전쟁 애기를 꺼내신 것이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보지 않는다.
34. 죄는 오직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없앨 수 있다. 사랑의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이 기성에서도 생명을 보내준다고 하셨다.
35. 하나님의 6000년 역사 중 마지막 역사를 대한민국에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섭리인들뿐이다.
36. 선생이 이 죄를 두고 3일 동안 울며 기도했다. 영계에서 보면 각 나라가 하는 짓들이 모두 보인다. 전쟁이 나면 북한도 멸망하고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입장이었다. 3일 째 되는 날,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 모든 것을 너를 쓰고서 용서하마.” 하셨다.
37.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풀지만, 주는 주의 단계에서 행하면서 풀기 때문에 완전하게 푼다.
38. 선생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도 무섭게 생각한다. 3년 동안 전쟁과 시체 속에 살았기 때문이다. 선생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다. 전쟁이 나면 특히나 젊은이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39. 지구상 가장 뼈저리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건자가 이 시대에는 사명을 받은 자밖에 없다. 사명을 받고 전쟁에 대해 뼈저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선생밖에 없기 때문이다.
40.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막 죽인다. 그러나 선생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평화가 온다는 것을 이미 50년 전부터 생각하고서 그에 관한 책도 썼다.
41. 얼마 전까지는 다들 전쟁을 해서 적을 없애야 한다고 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전쟁하면 서로 망한다며 안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이론과 주의 이론>이 세상에도 반영된 것이다.

42. 섭리를 나간 자들도 하늘에 당도록 열심히 뛰던 자들이었다.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 버리니 푹 주저앉은 것이다. 점진적으로 뒤로 후퇴하다보면 빠져서 신앙이 죽게 된다. 특히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43. 전쟁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죄가 관영했기에 이것을 해결해야 전쟁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전쟁이 안 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하셨다.
44.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고로 선생이 세계 전체의 죄를 회개하여 해결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용서하마.” 하신 것이다. 그 후로 상황이 바로 돌아갔다.
45. 북한이 그들의 행위를 인정하며 “유감스럽게 됐다.”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우리가 회개를 받아주면서 관계가 회복되었다. 북한이 싹싹 빌며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는 않는다.
46. 지구상 선생처럼 기도하는 자는 없다.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이다.
47.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깊이 하라. 말씀을 깊이 전하고, 할 일을 꼭 하라. 미루지 마라. 약속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48. 하나님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안 하면 상황이 돌아간다.
49. 죄악이 관영하면 심판한다. 회개하라. 죄는 ‘병’이다. ‘암세포’다. ‘폐결핵이 온 것’과 같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바로 죽는다.
50. B형 간염에서 암이 발생해서 죽기까지 석 달밖에 안 걸린다. 젊은 사람이라도 바로 죽는다. 병이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 죄는 그렇게 빠르고 무섭게 사람을 사로잡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없애라.
51. 오늘날 기독교도 “예수 믿으면 됐지, 그 외에는 없다.” 하고 모두 섭리사를 이단시켰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온다고 기다리는 그 이론을 뒤엎을 말씀이 없다. 그 이론은 오직 <다시 오시는 사명자>만 뒤엎는다.
52. 기독교는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그러나 <시대 주>는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이론의 근본을 밝혀 주었다. 예수님이 부활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영’으로 부활되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53. 나무에 불을 때지 않으면 사람이 얼어 죽으니 할 수없이 나무 기둥을 때서 뜨끈뜨끈하게 하여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다. 예수님의 육신이 온 인류를 위해 대신 불살라 준 것이다.
54. 예수님의 육신이 죽은 것을 제자들은 모두 알았다. 고로 베드로는 영계를 보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고 영은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해놓았다.
55.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으면 그 후에 육신이 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육신이 살았으면 설교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 기록이 없고, 육으로 글씨 하나 쓴 것이 없다.
56. 기독교 4대 교리 중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4대 교리가 기독교의 핵이고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7. 새 시대에는 성자가 강림해서 성약역사의 주인으로 나타나 하나님이 기른 자를 통해서 시대 역사를 펴 나가신다.
58. 아버지의 운명권이 다르고 자녀의 운명권이 다르듯 완전히 다르다.
59. 선생은 부모님이 선생의 삶을 그리도 주관하고 다스리려 했어도 절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났을 뻔 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자기 사고, 사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60. 휴거는 망상이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휴거 하나만 봐도 역사인 것을 안다. 혹은 말씀을 보면 믿을 수 있고, 되어지는 광경을 보고서도 믿을 수 있다.

61. <주>가 '주'인 것은 천 가지도 넘게 이유를 댈 수 있다. 마치 남자를 남자인 것에 만 가지도 넘는 이유를 댈 수 있는 것과도 같다.

62. 하나님은 인간의 만 마디에 한 마디로 끝내신다. 고로 사도바울은 “그는 전지전능한 자요, 모사자요, 능력자요, 권 세자요”라고 말했다.

63. 사람이 겪은 것은 확실히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사 쓰고 이리저리 하시는 것이 있기에 평가를 잘못하면 자기만 손해가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64.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자기가 구해서 준 것도 못 누린다. 모르고 배척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무지로 상극까지 하게 된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봐야 한다.

65. 많은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생각이 잘못되면 모두 헛일이다. 구한 것이 다 다른 데로 흘러간다.

66. 강을 막아서 물을 충분히 쓰자는 것만 생각했지, 강을 막아서 물이 그렇게 썩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 생각을 잘 해야 된다.

67. 우리도 생각을 잘 못하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바로 망한다. 자살하는 사람도 생각을 잘 못해서 죽는 것이다. 당장 어렵고 힘드니 죽어서 끝내버리자 하는데, 죽어서 육신만 없어지지 그 생각과 사고는 영이 그대로 갖고 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 죽어도 안 된다.

68.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받기만 하지 말고, 그 받은 것을 누리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된다.

69. 생각을 잘 하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주와 일체 되어 동업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망한다. - 이것이 주의 철학이요, 이론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70. 분석하고 재보고 달아보고 확실히 알고서 성령과 일체 되어 행하라. 하나님의 생각인지 보고, 주의 생각인지 보아라. 주께 물어보면 주의 생각인지 알 수 있다.

71. 구해서 얻은 것도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 넘어간다. 자기 자신이 문제다. 세상을 얻고 물질을 얻었어도 자기가 병들어 죽으면 끝난다.

72. 자기가 잘 되고 생각을 잘 하고 마음이 잘 되게 고하라. 자신이 잘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듯이 해 버리니 잘 될 수밖에 없다.

73. 자기 마음이 하나님과 일체 되게 구하라. 성령과 일체 되게 구하라. 주의 마음과 일체 되게 구하라. 주의 행함과 일체 되게 구하라.

74. 아무리 많이 얻고 누려도 자기 마음이 병들고 자기 행실이 병들고 자기 생각이 잘못되면 실패한다.

75. 하나님이 “악인이 모은 재산을 의인에게 주리라.” 하셨다. 악인의 생각이 잘못됐으니 그가 얻은 것을 의인에게 주신다는 말이다.

76.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안 지키면 도리어 화가 된다. 고로 약속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라. 하나님께 약속

한 것은 왕 앞에 약속한 것과 같다.

77. 약속을 지켜야 하나님도 주도 앞으로도 계속 약속을 지켜 주신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해도 안 들어 주신다.

78. 그때마다 성령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라.

79. 말씀이 없으면 방자하게 된다. 코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고, 방탕해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

80. 최고 극도로 하나님 주관권에 있을 때와 안 있을 때의 생각이 다르다.

81. “주께 배웠다.” 소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82. 계시는 정확하게 전해주고서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해야 된다. 자기 주관, 자기 의지를 전해주고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고 하면 바로 드러내버린다.

83.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주>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일체 되고 성령과 일체 되어 그만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다.

84. 주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많은 생명을 전도하여 의로운 데로 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안 하면 안 된다. 실제로 행하고 하나 되고 뛰고 달려야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중고등부의 영성캠프에 신령한 캠프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씀을 썼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을 받은 자가 신령해지고 신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영성캠프를 통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그야말로 신령한 캠프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주께 코치를 받고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라. 성령의 생각대로 하라. 안 하면 안 된다. 더 힘 빠지고 더 어렵게 한다.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니, 이래서 저래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잘 먹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다. 나 잘 먹질 않는다. 그래도 능력이 오고 힘이 있어 뛰고 달리는 것을 봐라. 음식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운동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능력과 권능이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그 힘을 발하고, 운동을 그만큼 힘이 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전문가들이 운동하러 옵니다. 그들도 운동했는데, 선생님 앞에는 역시 힘이 딸리고, 능력이 딸리고, 기술도 딸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에 비해 내가 운동하는 것은 10분의 2가 안 됩니다. 그들은 전문가들로서 100% 운동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 비해서는 20% 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해요. 나는 가끔 덩성덩성 운동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늘을 보라. 천지 만물 지으신 자로부터 능력이 온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간이니, 하나님께 꼭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땅에 와서 꼭 드러야 될 사람은 드러야 되고, 그러나 교회에서 할 사람은 각 교회에서 드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화롭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영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이라는 것은 꼭 노래만 부르고 춤이나 추고 무대에서 하는 그것만 영광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모든 자에게 먹을 것도 나눠 주고, 그들에게 할 것도 코치해 주고, 이것도 다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 내 죄,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죄가 관영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모든 약속한 것을 열심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이들 위에 충만하고 영원할지이다. 아멘.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해 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2. 그리스도는 문이다. <주>께 두드려라. 그러면 다 해 주리라. <주>를 찾으라. <주>께 구하라.

3. 주께 고하고 말한 사람들은 다 해결해 주었다.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올려 주었다.
4. 아픈 자들을 고쳐 주며 낮게 해 주었다. 주가 직접 손을 대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직 안 나온 사람은 때와 시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고쳐준다고 하셨다.
5. 무엇이든지 주께 고하라. 해 주리라.
6. 하나님은 “생각에서 문제가 생긴다. 생각이 온전하도록 늘 기도하라. 마음이 온전하도록 늘 구하고 주께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셨다.
7. 생각을 잘못하면 본인만 힘들다.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며 한 마디 하신다. 하나님이 한 번씩 주를 통해 말씀을 엄히 외치신다. 그 때 안 하면 큰일 난다.
8. 주를 오랫동안 보다 보니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한다.
9. 스스로 책임지려면 지구를 한 바퀴 걸어서 오는 것이 빠를 정도다. 오랜 세월 가운데 3년, 혹은 7년, 10년씩 한 바퀴를 돌고서 그제야 깨닫고 죽자 사자 열심히 한다. 그러나 그때는 주가 멀리 떨어져 있다. 말을 안 들은 만큼 조건을 세워야 된다.
10. 사람은 가장 큰 것이 <생각>이다. 생각이 잘못되면 주관이 잘못된 대로 자꾸 가진다.
11. 한 번 잡아당겨 날아가는 포탄은 계속 날아간다. 공중에서 잡을 자가 없고, 쏘는 자도 못 잡는다. 이같이 생각에서 ‘하겠다.’고 마음먹고 하면 본인도 못 잡는다.
12.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에서 한 층을 누르면 그 층까지는 가야 한다. 그 전에는 서는 법이 없다.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 그와 같이 인간이 마음먹고 ‘하겠다.’ 하고서 시작하면 중간에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
13. 하나님은 절대성의 체계, 질서, 법칙, 원리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뇌의 구조를 그와 같이 만들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면 그것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쉬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4. 한 위치까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한번 시동을 걸고 가버리면, 그 목적지까지는 가야 된다. 중간에 “왜 그랬지?” 하는 마음이 생겨도 가진다.
15.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때는 중간에서 ‘왜 그랬지. 멈출 수 없나?’ 생각해도 안 멈춰진다. 본인이 해놓고 본인도 멈추지 못한다. 주님이 말해도 멈춰지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는 자도, 주를 미워하는 자도 인생은 누구나 동일하다.
16. 처음, 시작, 알파에서 스위치를 누르지 말아라. 자기 생각으로 스위치를 누르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마라.
1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깥에서 하면 범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범죄가 아닌 것이 있다. 축구를 해도 라인 바깥에서 골을 넣으면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18. 하나님 주관권 밖에서 사랑하는 것은 죄다. 하나님 주관권 안의 사랑은 죄가 아니다.
19.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주관권의 힘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 죄의 세계로 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주관권,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권에 의해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20.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것은 죄다. 노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취한 것으로 죄가 되었다.
2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심판을 받지 않고, 바깥에는 작든지 크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22.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의 법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 와서 관리하지 않으셔도 우주의 자연법, 인력권의 법, 중력권의 법, 원칙의 법에 의해 끌려가버린다.
23. 사람도 자기 위치를 떠나면 어디론가 사정없이 빨려 들어간다.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듯이 빠져 들어간다. 블랙홀은 청소하는 청소기와 같다.
24. 자기 위치를 벗어난 변질된 천사들은 지옥에서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 사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25. 자기 생각을 벗어나고, 자기 주관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26. 하나님의 주관권의 말씀으로 들어오면 말씀에 빠져든다. <말씀>은 <하나의 열차요, 비행기요, 길>이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기를 “나다.” 하신다. 말씀을 그대로 현실화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27. 주의 입에서 나온 말을 따라가면 입이 보이고, 뇌가 보이고, 그 전파를 주신 하나님이 보인다. 이와 같이 가보면 결국 원체가 보인다.
28. 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대화하라.
29.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주간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보니, 하나님은 “마음을 잘 먹고 생각을 잘 하도록 하라. 마음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본인에게 손해가 간다. 많이 구해놓고도 쓰지 못 한다.” 하셨다.
30. 생각을 잘못해서 죽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다른 세계에 가 있고, 주와 같이 동행하는 자가 동행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주관권으로 가게 되고, 힘을 잃게 되고, 생각이 변해버린다.
31.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기도하고, 주의 생각이 되게 기도하고, 성령의 생각이 되게 기도하여라.
32. 사람이 좋은 것을 원하나 안 되는 이유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3. 죄가 관영해서 전쟁이 일어나니 죄를 회개해야 전쟁도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전쟁이 안 나기만을 원했다.
34. 부엌에 불이 붙었는데 안 당하려면 가서 불을 끄는 수밖에 없다. ‘불을 끄는 것’이 <회개>다.
35. 주가 책임지고 회개하니 마치 가스 밸브를 잠근 격이 되어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36. 죄를 회개할 때는 제대로 되는 법칙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37.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케이블카가 끝까지 가야 멈추듯, 하늘나라로 가겠다는 마음을 딱 먹으면 하늘나라까지 가기 싫어도 가게 된다. 한번 마음을 먹고 결심하면 가진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주를 믿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가기 싫다.’ 해도 가진다.
38. 지옥에 갈 짓을 하고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서 ‘나 가기 싫은데.’ 해도 사망으로 가진다. 마치 파생되는 별처럼 어디론가 빨려가고 있다.

39. 나쁜 쪽으로 '중간 영계'까지 가서 거기서 거지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항상 거기서 사는 것이다. 거기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절벽 길을 기어 올라가듯 올라가면 자기 행위대로 다시 올라가진다.
40. 사탄은 '네가 대장을 하라.' 하고 권한을 준다. 그러면 길들어서 그 주관에 일체 되어 체질이 되어 살게 된다. 벗어 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
41. 사탄들은 그 전술이 만 가지도 넘는다. 한 번 가면 나갈 길이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고통을 주신다. 고통을 주면 그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42.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이 다르다.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사탄은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
43. 주께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 구하라.
44. 주께 구할 일은 주께 구하고, 주가 못 할 일은 하나님께 고하라. 그런데 주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주를 통해 주신다. 고로 주가 할 수 없는 일도 주께 구하라.
45. 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얻어야 한다.
46. 어느 때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도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도 좋아하신다.
47. 어떤 음식을 만들어 줬을 때 각 사람이 감탄의 모습, 웃음의 모습, 기절초풍하는 모습이 다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각 개성의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그러니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멋있게 영광을 돌려라.
48. 올해는 하나님의 보낸 자가 보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광을 돌려라.
49. 주는 생활 가운데 환자를 고쳐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지가치 여러 가지로 먹이면서, 운동을 하면서 영광 돌렸다.
50.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한 사람들은 많이 얻지 못하고 자기 주관권으로 사라졌다.
51. 항상 주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도 크다. 자기 생활 속에 늘 배우고 답을 찾아야 한다.
52. 와스디는 왕이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았다. 안 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스더가 나타났다. 가인 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벨 통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끝내 건너편 역사가 되고 말았다.
5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법을 바꾸고 자기 주관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꿔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이라 막을 길이 없다. 그대로 하는 것이 길이니라.
54. 하나님은 법을 영원히 안 바꾸신다. 새로운 시대가 와도 구약시대와 신약역사의 법을 더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함으로 성약시대를 지탱해나가고 역사해 가게 창조하셨다.
55.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그 법을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 시대 법은 그 시대 사람이 쓰게 두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시대의 차원 높은 법을 주어 그 법을 지킴으로 차원 높은 황금천국으로 가게 만드셨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늘 깨닫고 알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사를 지은대로 늘 생각을 하고 행한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인생의 변화무쌍한 마음들

을 성령은 모두 지적하고 말씀했습니다. 잘못하는 자를 지적하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할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성령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사고들이 잘못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고가 잘못되면 사고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고가 잘못된 사람들은 사고가 났습니다. 오는 것만 생각했지,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을 생각 안 해서 여기저기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의 사고도 바로 난다. 주관이 잘못되면 사고 난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라. 모두 주가 말하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주의 길을 향해서 뛰어라. 달려라.” 그와 일체 돼서 행할 때는 그의 능력을 덧입고, 그의 생각을 덧입고, 그의 은혜를 덧입고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길들을 메시아가 막노니 다 막힘을 받고 온전한 세계가 되기를 원하노라. 다 그리함을 받고 천사들, 동원해서 사탄이 끌고 가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라. 원하노니 그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섭리사람들 전체가 자기 길을 행치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께 구하고, 주의 문을 두드리며, 주안에서 찾아야 찾아진다. 주 안에서 찾아야 찾아지지 네 생각 지능으로서는 찾지 못한다. 이미 주관권의 생각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는 찾아지는 법이 아니다. 인생은 다 어린 자들이다.” 했습니다. 주 하나만 역시 그리 크고 그리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세례요한, 그 다음에는 따르는 구원받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온전하심이 영원무궁토록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월명동도 눈이 와서 모든 찾길이 막혀있습니다. 오늘 모두 운동한다고 했지만 내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나에게 그 입을 통해서 말씀케 해 주셨습니다. 은총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의가 되시고 영원하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의논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의논해서 그 뜻대로 따라감이 늘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섭리사 오늘도 전도하며 가르치며 영광 돌리며 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온 민족도 세계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늘 성령과 그리고 성자와 주와 함께하며 사는 삶이 충만하도록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 되고 형통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할까 말까 하지 말아라.
2. 할까 말까 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해야 한다. ‘담대하게 행하라’는 말에는 심리적으로 생각, 마음, 정신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3.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일을 두고 척척 한다. 반면 심리적으로 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은 잘 못한다.
4.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할 일을 잘 하고, 나이가 어린 자들은 경험이 없으니 심리적으로 망설이는 것이 있다.
5. 자신이 없는 자는 할까 말까 한다. 기술적 부족도 있고, 하다가 안 될까봐 그러하기도 하다. 또한 어려움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 성령 안에 사는 자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일>이니 해야 된다.
6.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예배를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시간이 여유 있다고 더 자기도 하고,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잠이 와서 안 일어나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못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7. 분석해보면, 못하는 데에는 ‘게으른 것’이 끼어있다.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강도, 정신, 생각에 휘말려서 미적미적하는 것이 없어진다. 고로 자기 습관도 들이고, 생각도 고치고, 척척 해 나가야 된다.
8. 지난날을 보면,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은 대개 안 하는 쪽으로 흘렀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된다.’고 명령을 받은 것은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안 하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9.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분석해 나가야 한다. 자기 수준대로, 자기 차원대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10. 지난날을 잊지 말고 생각하라. 할까 말까 했던 지난날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반성해 보고 계산해보아라.
11. 계산을 해 보니 지난날 ‘한 것’은 두고두고 보아도 잘 한 것이 되었다. ‘안 한 것’은 바로 손해가 가서 그 상황이 닳았다.
12. 성서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일도 맡긴다.” 고 했다. 현재의 할 일들이 웬만하면 그리 큰일들이 아니다. 그것을 자꾸 해버릇해야 커서 큰일들도 해 버린다.
13. 지금은 시대가 새로운 시대이니 만큼 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님을 믿고 사니 되어지는 일도 그 주권권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14.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일을 안 해서도 문제가 생긴다. 일을 할 때는 행함으로 문제가 풀어지고 보람도 생기지만, 안 했을 때는 안 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일어나게 된다.
15.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안 한 것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크다.
16. 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행함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많다. 월명동도 행함으로 어려운 문제, 환경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17. 결국 한 것은 표가 나 있고, 안 한 것은 아무런 표도 안 나고 사람들도 잘 모른다. 하려고 했던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이다.
18. 이 시대는 실천의 시대다. 그래서 섭리 교리가 <실천>이다.
19. 사람이 습관이 되면 할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고로 굳어지게 된다. 대개 안 해 버리는 사고로 분위기가 흘러간다.
20. 사실상 기분이 나쁘면 할 일도 안 해지고, 분위기가 안 되면 안 하게 되고, 힘들어서 안 하게 되기도 한다. 또 안 하면 편하니 안 하기도 한다.
21. 젊어서 한참 뛰어 돌아다닐 때는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 주살나게 뛰고 달리면서 어느 때는 허탕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본전을 찾기도 하고, 어느 때는 흑자를 내기도 하는 것이다.
22. 젊었을 때 많이 경험하고 많이 겪어야 된다. 시간적 투자, 비용 투자, 차비 투자 정도는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작은 일도 해 버리면 경험상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많은 경험을 적어보고 기록해 보면 많이 늘게 된다.
23. 섭리사에 시간도 투자하고 옆치락뒤치락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만큼 많이 성장하고 크다. 반면 쫓아다니지 않는 신앙인들은 잘 크지 않는다.
24. 그 날 계획을 할 때나 기도할 때 물어봐야 한다. “월명동을 오늘 가야 하나, 내일 가야 하나?” 이것을 기도할 때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이 계산을 하게 하신다. 그러면 판단이 온다. 많은 경험자들에게서 정보를 얻게 되기도 하고, 자기 시간을 맞추기도 해서 가게 된다.
25. 지혜는 ‘판단’이다. 판단은 ‘계산’을 해야 한다.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
26. 생활 사건들은 본인이 계산을 충분히 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아무리 쉬운 문제도 계산을 안 하면 답이 안 나온다.

27. 성경에 “계산을 해 보라.” 는 말이 있다. 싸울 때 상대를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 보고 싸우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계산해 봐야 한다.

28. 이와 같이 초근초근 잘하면서 할까 말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

29. 지난날 안 해서 어떻게 된 사실, 해서 어떻게 된 사실을 분석하고 완전히 깨닫고 알아라. 지난날의 것을 보고 현재의 것을 계산하는 것이다. 철저히 해야 된다.

30.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배우는 것이 크다. 지금은 할까 말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지혜를 받아야 한다.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31. 문제는 대개 몰라서 일어난다. 모르면 메시아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이게 된다.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역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니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32. 사형수들과 감옥에 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굉장히 큰 죄를 지어서 간 사람도 있지만, 하찮은 것을 몰라서 죄를 짓고 간 사람들이 많았다. 감옥에 안 간 사람보다 ‘덜’ 지은 죄로 옥에 가기도 하고, 작은 일인데 지혜가 없어서 그와 같이 되기도 한다.

33. 시골에 사는 한 젊은 청년은 놀러가는 사람들 두 패가 칼을 들고 싸우기에 말리다가 자신의 팔 인대가 끊어지고, 경찰에는 도리어 칼로 공격한 자로 얘기되어서 살인사건으로 잡혀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했다. - 주가 이 억울한 사연을 듣고 하나님께 올려주었다.

34. 또 하나는 21살 어린 자가 이성 문제로 들어왔다. 3년 간 결혼식 없이 같이 산 여자와 싸우고서, 그 여자가 부모님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의 문이 잠겨서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상대와 엄마까지 찌고 치니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35. 한 명은 영등포에서 열차타고 공무원 시험 보러 가다가 차가 흔들려서 넘어지면서 여자를 잡았다가 신고당해서 들어왔다고 했다.

36. 어떤 자는 출감해서 나왔다가 20일 만에 또 들어간 자가 있었다. 이유는 자기가 옥고를 치를 때 4년 간 늘 편지해 주고 기쁘게 해 주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에게 고맙다고 술을 사 주며 같이 마시다가 말다툼이 나서 그 친구를 때리고 다시 들어간 것이었다.

37. 하찮은 것으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니 잘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똑같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할 것들이 많다.

38. 할 일을 두고서 분별도 해야 하지만, 망설이지 말고 할 일을 하라.

39. 신앙을 할 때도 ‘말씀은 맞는데 믿을까 말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10분만 있다 와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평생 밥만 먹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고 한 번에 해진다. 그러니 절대성을 가지고 행하여라.

40.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획한 일을 척척하게끔 항상 해버릇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 주신다. 그런데 대개 보면 할 일을 잘 못한다.

41. 평균적으로 볼 때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 자꾸 해버릇 해야 된다. 안 해버리듯 하면 되는 꼴이 별로 없다.

42. 안 해도 될 일은 소수이고, 거의 해야 될 일이다. 부지런히 하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중단하면 된다. 그러니 웬만하면 일을 해버릇 해야 된다. 성령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니 해버릇하고, 문제가 일어나면 잘

풀어 나가도록 하라.

43. 안 하면 문제도 안 일어나지만 유익도 없다. 유익이 없으면 인생 운영이 안 되고 흑자가 나지 않고 적자가 나서 문을 닫게 되고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나간다.

44.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는데 후에 보니 평범하게 살고 있었다. 안 하는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주가 하라고 했으면 웬만하면 해야 된다.

45. 하나님 앞에는 이유가 필요 없다. 무조건 해야 된다.

46. 기독교는 한 번에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는 잠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방으로 할 수 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할까 말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모두 분석해서 가르쳐 줬으니, 잘 듣고 이제 또 오늘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들으니까, 그걸 순서 있게 잘 정리해 놓았다가 일생 가운데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뇌에 지금 기록을 했지만, 금방 가다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나같이 기록을 해 놓은 사람은 또 다시 보면 알지만 잊어버리니, 기록해 놓고 보라 했습니다. 모두 잘 가르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축복하심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온 모든 생명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라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요, 주 앞에 신부들이니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하고 싶을 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신랑이 제재를 할 것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이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하늘과 땅에 행하라고 하였으니, 모두 그렇게 삶의 지혜와 지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사탄과 흑암과 귀신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천군들, 천사들 보내고 성령이 와서 싹싹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민족과 세계도 할 일을 두고 할까 말까 하는 자들을 싹싹 성령으로 인도해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삼위의 큰 사랑을 감사하고, 천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중심한 캠퍼스들 축복하사, 계속 전도해서 100명 150명 채워 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의 각 교회의 캠퍼스들도 그리함을 받고, 잘 되고 형통되며, 해외의 나라들도 그리할지어다.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전도는 부지런히 행하여라. 전도는 할까 말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생명을 구원하는데 구원할까 말까가 필요하냐?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고, 부지런히 사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하고, 그 지혜와 지식과 생각이 항상 흔들리지 말지어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앞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하늘과 그리고 자기와 계획했으면 하라.

2. 그때마다 성령으로 감동 주고 말씀으로 해 준 것은 따질 것도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행하라.

3.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항상 할까 말까 하며 자기 생각을 넣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육적으로 기울어졌고, 하기는 했어도 육으로 했다.

4. 대개 안 했을 지라도 ‘육의 생각’으로 안 하게 됐고, 했을 지라도 ‘육의 생각’으로 했다. 또한 미적거리는 생각으로 인해서 때를 놓치고, 시간을 놓치고, 좋은 것을 놓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도 있다.

5. 사람은 <놓친 축복>이 어느 정도로 컸는지 모른다. 한 사람만 알고, 안 한 사람은 모른다.

6.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을 때 천사를 보내어 이끌어내게 하는데 서둘러 나가라고 했는데도 미적거리고 있으니 천사가 “이러다 큰일 난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맞추지 않으면 죽는다.” 하며 재촉했다.

7.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으로 많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한 가지로는 성공이 안 된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를 해야 한다.

8. 집을 지을 때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를 해야 마지막에 ‘완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다 해 놓고도 등 하나만 제대로 안 달아도 불품이 없다. 이와 같이 사람도 한 가지만 갖추지 못해도 불품이 없다.
9. 신앙도 마찬가지로 갖추 것을 다 갖추야 한다. 안 갖추면 마치 미인의 얼굴에 코가 납작하든지, 눈이 작든지, 입이 마음에 안 들게 큰 것과 같다. 모든 일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0. ‘할까 말까’ 하며 ‘미적미적 깔딱 깔딱 하는 생각’은 모든 일에 있어 갖추지 못한 것 중 하나이다.
11. 우리 신조 중 하나는 “해야 된다. 안 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고 봐야 된다. 해야 뭔가 얻어진다.” 이다.
12. 하는 강도에 따라, 하는 범위에 따라, 행하는 크기에 따라 많이 얻기도 하고 적게 얻기도 한다.
13. 성서에는 ‘하라’ ‘하지 마라’이 두 말씀이 있다. 십계명에도 ‘하라’와 ‘하지 마라’의 두 말씀이다. ‘하라’ 혹은 ‘하지 마라’하는 명령이 뜨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두고는 하는 것이다.
14. 작게 하는 것과 크게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 차원, 자기의 능력과 재질과 한도로 인해서 결정된다.
15. 하되 완전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미완성, 미정적인 것’과 같아서 아름답다 할 수 없고 웅장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할 것을 다 해야 된다. 하다 말지 말고 ‘완성’을 하라. ‘완공’을 하라.
16. 보고 또 보고 또 다시 봐서, 채울 것은 채우고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더 할 것은 더 하라. 한계를 넘어서 한 것은 빼내고 조종하면서 하라. -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절대적이다.
17. 그렇게 하는 사람만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단계의 선에 있다.
18. ‘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의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다 보인다. 할 것을 다 한 사람은 그 위치에서 여러 종류를 본다. 자기가 이미 거쳐 왔으니 다른 사람이 중간코스에서 이미 다 왔다고 해도 그것을 투시하고, 감정하고, 점검할 지식과 지혜가 있다.
19.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안다.
20. 철학은 관념철학과 실존철학으로 나눌 수 있다. <관념철학>은 생각을 해서 인생이 왜 먹고 왜 사는지를 논한다. 관념적인 정신세계와 생각세계를 논한다. 그러나 <실존철학>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깨닫는 것이다. 결국 관념철학에서 실존철학으로 바뀌게 된다.
21. 관념적인 자는 아무리 생각이 강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흔들린다. 그러나 실존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행해서 얻었기 때문에 생각이 흐릴 지라도 흔들림이 없다.
22. 선생은 늘 “행하라.” 했다. 책상 위에 있는 것 하나도 치우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있다. 그러나 치우면 일순간에 몇 십초 만에 없어진다. 이와 같이 행함이 그리 크다.
23. 행함과 금주 말씀은 절대적으로 한 단어 속에 들어있다. - “할까 말까 아예 하지 마라.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실제 겪을 때는 다르다.”
24.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것이 많다.
25. 환난도 어려움도 많은 고통도 겪기 전에는 두려워서 어떻게 견디지 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안 겪었을 때보다 더 좋게 되었다. 안 겪었을 때는 망설이고 있었는데 환난으로 인해 오히려 못 오르던 곳을 오르게 되고, 파도로 인해 출렁 출렁 넘어가기도 한다.

26. 바람 불고 파도 쳐서 어떻게 가나 하지만, 출렁출렁 제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파도가 밀어줘서 엄청난 거리를 가게 된다. 환난의 파도가 자꾸 밀어내서 애굽에서 신광야로 가게 되고, 신광야에서 가나안복지로 가는 역사가 있었다.
27. 환난, 연단, 고통의 세계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얻고, 단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행해야 된다.
28.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행하느냐'다.
29. 본격적으로 목숨을 걸고, 젊음을 불사르며 주님을 만나든 못 만나든 충성을 다하며 산 자들도 있고, 한 배를 탔으니 만족하다 하고 배의 곳곳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들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이미 배 안에서 다 끝났다.
30. 어린 아이가 바깥에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바깥 역사'이지, 안에서 다 일어났다. 바깥 역사는 또 다른 역사다. 아기가 크고 성장하는 것은 열 달 동안 '안'에서 다 결정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역사도 똑같다.
31. 형상적을 볼지라도 한 쪽만 봐서는 형상을 못 찾는다. 동서남북 다 보고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봐야 한다. 월명동도 운동장만 봐서는 모른다. 맨 위까지 올라가서 보면 기절한다.
32. <큰 사람>은 바깥 올라가 봐야 안다. 나무도 산도 멀리서 보면 큰지 모른다. 네 아름 되는 나무도 그저 200m, 300m 떨어지면 작게 보인다. 그러니 가까이 바깥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이다.
33.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성령도 가까이 해야 된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평생을 살을 안 대고 살면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살아도 그 한계 이상은 알 수가 없다. 백짓장만큼만 떨어져도 알 수가 없다.
34. 주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에 더 충격적으로 와 닿는다.
35.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든 사람이든 손을 안 대고 산다면 얼마나 그 차이가 큰지 실험해보니 100%가 다른 것을 알았다.
36.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을 더 깨닫기다. - 이는 거리상 몸으로 가까이 하라는 것이 있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마음으로 가까이 하면 마음이 일체가 되어 붙는다는 것도 있다.
37. 성경에 “그 날은 직접 주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한 날이 오기까지 2000년이 걸렸다. 지금은 영상시대가 되어 전 세계에서 보는 것이 같지만, 영상 없이 눈으로만 본다면 가까이 본 사람이 크다.
38.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치 빌립이 ‘하나님을 보면 족하다.’고 한 것 같이 이 시대 사람들도 그러했으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제2의 그리스도를 본 자가 곧 예수를 본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은 다르나 ‘나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한 것과 같이, 이 시대 온 자가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와 같으니라.’해도 그 말을 믿어야 한다. 너희는 나 예수를 믿고 살던 자로 하나님도 성령도 나도 인도하여 ‘시대 주’에게 오게 되었다. 그는 나를 메시아로 절대 믿고 사랑했기에 사랑 세계의 주인이 되고 만 것이다. 사랑해서 한 부모가 낳아서 기르듯이 길러주기도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정하여 그에게 시대를 인계하였다.” 하셨다.
39. 여러 번을 대해 봐도 예수님은 늘 유럽 사람의 성향이시다. - 성격이 유연하다. 혈기적이고 자신의 성격을 팍팍 나타내지 않고 느긋한 성격이시다.
40.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주관을 받고 살아서 그 성품을 나타내신다. 고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하고 말하게 되었다. 얼굴 형태는 똑같지 않아도 그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도 그와 같다.

41. 이 시대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기다리고 그 얼굴 보기를 원했다. 아주 기묘하고 오묘하게, ‘마치 흙이 도자기로 홀연히 변화되듯이 육신이 영체로 홀연히 변화되어 올라간다.’며 설득력이 강하게 이야기를 한다.
42. 그러나 ‘육신’이 홀연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행위를 영도 같이 하면서 ‘영’이 변화를 갖게 되고, 육신은 변화를 가지되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와 같이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 이 말은 영원히 들어도 믿을 수 있다.
43. <영혼>은 ‘영’으로 변함을 받고, <육>은 ‘육’으로 변함을 받는다. 우리 지체를 볼 때, 피는 변해도 피고, 살은 변해도 피가 되지 않고 살일 뿐이다. 유전학자들은 ‘콩’은 아무리 변해도 ‘콩’이라 하나 기독교는 ‘콩’이 변해서 ‘팥’이 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44. 다윈이 말하기를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6000년, 7000년, 만 년 전 사람들의 얼굴은 원숭이와 닮았다. 그 얼굴이 변하면 얼마나 변할까 했지만, 지금의 얼굴과 같이 변했다. 그러나 원숭이는 지금도 안 변했다.
45. 사람의 미(美)를 논할진대, 어렸을 때와 성장할 때는 누구나 예쁘다. 커도 그 미를 유지하고 변하지 않는 자가 미인이다. - 이는 미의 근본자 성령께서 합당하다 하시어 어인을 찍고 말씀으로 나오게 되었다.
46. 몸을 건강하게 튼튼히 만들어야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없어진다. 몸이 튼튼하지 않고 약하면 어떤 일을 놓고 할까 말까 해진다. 몸이 강한 사람들은 하고 싶다.
47. 선생은 생활이 대범하고 스릴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이 못 하는 일을 하려면 과감해야 되기 때문이다.
48. 안 해 본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실패한다고 안 하려고 하고, 두렵다고 안 하려고 하고, 무섭다고 안 하려고 한다. 안 해 본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보는 것을 해 본 사람들은 간단하게 한다.
49. 월명동에서 일할 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게 하다 보니, 결국에는 한국에서 중장비가 들지 못하는 돌까지 기어코 끌어다가 해 놓게 되었다. 해 놓고 보니 언제 봐도 잘했다고 하게 되고, 그것으로 또 스릴을 느끼게 되었다.
50. <스릴>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뛰어내릴 때 느끼는 짜릿한 스릴만이 아니고, 남녀가 사랑할 때의 스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있다.
51. 자기 생각대로 멋있게 글씨 쓰는 것도 스릴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스릴이고, 운동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꽃아 내리는 것도 스릴이다.
52.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스릴을 느끼는데, 간과 위에게는 독약과도 같아서 귀여운 세포들이 멸망을 한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53.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금주의 말씀 ‘할까 말까 하지 말아라.’ 이 말씀 역시 아주 스릴 있는 말씀이다. 무한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할까 말까 하는 버릇을 꼭 고쳐야 된다. 할까 말까 하지 않고 갈 길을 가는 것이 스릴이다.
54. 선생은 위험한 스릴은 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죽기 때문이다.
55.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스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스릴이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도 스릴이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자를 늘 사랑하는 것도 스릴이다. 또한 할 일을 하는 것이 스릴이다.
56.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간에 불을 붙였으니 이제 1년 동안 가면서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영광>은

‘사랑’이다. 사랑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57.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야 할지라.” 하셨다.

58. 사람이 수고하고 대가를 받듯이 지금은 시대의 십자가를 저주고 주도, 따르는 자들도 영광에 들어간 역사다. 고로 웬만하면 모든 것을 할까 말까 하지 말고 자꾸 행하라. 지금은 부활 역사, 영광의 역사다.

59. 자기 생각 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도록 하라. 웬만하면 지금은 모두 행하라. 지금은 영광의 역사, 부활의 역사로 간다.

60. 선생은 늘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화살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 번 가면 혼자 뒤돌아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했다.

61. 치타나 사냥을 잘하는 독수리를 보면 할까 말까 하지 않는다. 한번 쬔으면 그대로 쫓아가서 기어코 잡고 만다. 우리도 이런 성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62. 의학적으로 보면 남녀가 이성의 관계를 하는 것은 말초신경이 흥분되는 짜릿한 스릴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것은 ‘뇌 자체’가 흥분되는 것이다.

63. 생체학적으로 볼 때 뇌 신경덩어리에서 자궁이나 성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 가닥에 해당될 뿐이다.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것은 8초에 불과하나, 뇌를 흥분 시킬 때는 100만 배 이상 흥분이 된다.

64. 하나님은 육적인 사람이 될까봐 아예 성적인 흥분이 오래 가지 못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뇌를 흥분시키고 정신을 흥분시키고 생각을 흥분시키고 영혼을 흥분시키면 하루 종일 간다.

65. 연애하고 결혼한 자들을 보면 연애하는 기간에는 매일 좋아서 쫓아다니지만, 연애 기간이 끝나면 히적부적 하고 놀러도 안 간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섬기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66. 영광 돌릴 때 할까 말까 하지 말고 과거에 환난 핍박 어려움 쫓길 때를 생각하며 항상 하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영광 돌리며 모든 삶 속에서 스릴을 느끼며 살아가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날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릴을 애기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스릴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도 스릴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스릴이고 그리고 모두 나의 뜻대로 하는 것도 스릴이다. 이것이 크고 크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모두 할일을 해 줬으니, 이제는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뭘 하라 하면 꼭꼭 하라. 다 영광 받는 때이고 영화로운 때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히 할 일이 많이 있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을 놀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주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늘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이곳을 중심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대개 몰라서 할까 말까 하지, 알면 꼭 해야 될 일은 망설임 없이 한다.

2. 어떤 일을 두고서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해서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가는지를 모르니 사업을 할 때도 망설이고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있다.

3. 이럴 때는 자기 생활, 자기 삶이니 계산해보면 답이 나온다.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해야 될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

4. 하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환경을 파악해 보아라.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인지 분석하고 파악하는 데는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
5. 검사(檢事)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검사(檢査)’를, 하고 조사(調査)를 한다. 검사(檢事)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칼 검(劍)을 써서 칼로 ‘끊는다, 자른다, 쪼갠다.’는 뜻도 있고 또 ‘검토한다.’는 뜻도 있다.
6. 검사들이 근엄하게 검사를 하면 되는데, 칼 검(劍)만 생각하고 쿡쿡 찌르고 무조건 자르기만 한다. 검사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7. 시골에 가보면 공판장에서 곡식을 팔고 국가에서 매입을 한다. 그 곳에는 곡식이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를 검토하는 검사장(調査長)이 있다.
8. <확인>을 법으로 표현하면 ‘검사’라고 한다. ‘검사한다. 확인한다. 점검한다.’는 말이다.
9. 검사들이 근엄하게 검사를 해 줘야 하는데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 그 원인은 피고인과 원고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오히려 ‘피해를 준 편’을 들기도 한다.
10. 감옥살이 하면서 들어보니 실상은 아닌 것이 많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듣고 그 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들과 이런 법을 만든 자들에 대해서도 전부 하나님께 올렸다.
11.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시고, <의>에 민감하시다.
12. 어떤 때는 섭리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편지가 온다. 선생에게 보고하면 이상하게 해결이 잘 된다. 하나님께 정확히 보고하기 때문이다. 편지의 보고가 사실인가 천사를 보내라고 한다.
13. 보고(報告)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보고를 하면 바로 즉석에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하는 보고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14. 하나님은 소돔 땅에 실제로 가보셨다. 아브라함이 보니 세 명의 천사들이 집 앞에 있어서 대접하였다. 천사들에게 많은 고기를 삶아주어 잘 먹고 갔다고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셨다. 나머지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었다.
15. 성령님도 선생 앞에서 항상 식사를 하신다. 그러니 형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챙겨야 한다.
16. 단상 강대상 뒤에 놓는 의자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앉으신다. 그런데 그동안 섭리사가 최고 형편없는 의자를 놓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다. 그래서 선생이 월명동부터 의자를 짝 바꿔버렸다. 100년 전 왕이 앉는 의자로 바꾸고, 그 전에 사놓은 것으로 바꾸었다.
17. 그런데 의자만 바꾸니 마치 얼굴만 분장한 여자같이 보이고, 옷을 형편도 없이 입은 여자와 같아서 단상에 맞춰 모두 바꾸고 있다. 단상은 하나님의 단인데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주가 시키는 대로만 바꾸어라.
18. 하나님은 100m로 보일 때도 있고 200m로 보일 때도 있고 빌딩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마음대로 하신다. 사람도 화면에 확대시키면 크게 보이듯이 그러하다.
19. 영체는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면 작게 보이고, 어느 때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기도 한다. 사람도 실체는 작지만 화면으로 확대시키면 큰 격과 같다.
20. 영계로 보면 부산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아시아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다 보인다. 그 위치에서도 바로 들리고, 작게 말해도 다 들린다.

21. 영계 세계는 육계와는 다르다. 육계는 전화기를 통해서 혹은 전파를 통해서 혹은 화면을 통해서 서로 통한다. 그러나 영계는 몸 자체에 다 들어있다. 선생은 몸 자체를 스마트폰 같이 사용한다.
22. 육계에서는 육계의 것을 통해서만 한다. 하나님도 육계에서 사용할 때는 육계의 것을 적용해서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만물을 통해 전달하신다. 하나님도 육신의 세계는 육신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신다.
23. 사람이 몰라서 못 하게도 되지만, 몰라서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다.
24. 하나님께 “검사들은 검사하는 자들인데 칼 가지고 너무 강하게 스칩니다. 식당의 주방장도 아닌데 너무 칼질을 하고 칼로 칩니다.”하고 기도했다.
25. 검사들이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안 하니까 너무 무섭다고 했다. 한 번 검사들에 대한 보고를 올리니 난리가 났다.
26. 선생도 지구촌을 대표하는 하늘나라의 검사와 판사라고도 할 수 있다. 사람을 변호하니 변호사도 된다.
27. 예수님도 “내가 심판할 권한이 없겠냐.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없겠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세밀히 분석해서 저울에 달고 재보고 썰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에는 버릴 수밖에 없다. 처치 곤란 단계에 가면 그와 같이 결정하겠지만, 일반 사람같이 함부로 하지 않는다.
28. 선생은 하나님께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 살피달라고 한다. 혹시나 하고 이중 자물쇠를 채워놓는 격이다. 기도를 잘못해 주면 엄청난 경제손해도 가게 되고 엄청난 인생 손해도 가게 된다. 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 하더니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이다.
29. 하나님께 보고함으로 엄청난 많은 심판들이 일어났다.
30. 그리스도가 환난을 겪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선지자들의 말을, 주의 말을 더디 믿느냐.
31. 민족도 많은 척결 운동, 깨끗한 운동을 한 다음에 선생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역사로 돌렸다. 죄 지은 것을 그냥 놓고는 평화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절대 해 주지 않으신다.
32.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은 지구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전체를 통치하시고 썩은 시체까지도 통치하신다. 지옥도 마귀들이 통치한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33. 절대자 하나님은 <선>이요, <의>다. 그 ‘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신다.
34. 하나님은 ‘의’를 놓고서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 의를 행치 않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행하신다. 지구상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있다.
35.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통치를 못하시나?’ 하고 주가 가장 많이 물어보았다. ‘주’는 ‘주’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치권이 어디까지인지 물어본다.
36. 선생은 한 교회만 가지고 운영하는 자가 아니다. 지구상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이니 한 나라를 하나로 보고 그들이 하는 행위를 전부 보고한다.
37. 모르면 그 나라 ‘의’를 중심해서 하나님께 올린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 달라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

38.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서 행하지만, 어떤 나라는 독재주의가 절대적으로 쥐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가?’ 해지기도 한다.
39.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심판하신다. 놔두면 이 세상이 악의 세계로 완전히 되기 때문에 놔두지를 않으신다.
40. 아무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기 주권을 부려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생 깜빡였다가 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말려 죽는다.” 하신다.
41. 소나무가 없는 곳은 참나무를 두고, 참나무가 없는 곳은 가시나무를 뒀라 한다. 아니면 장마 저서 사태가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게 놔둬라. 삭막한 지구상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 짐승을 기르기 위해 지구라는 집을 지어놓은 것은 아니다.” 하신다.
42. “의인들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의로 통치하시지만, 악인들은 우선 놔두어라.” 하신다. 의인들이 번져나가서 악인도 뒤집어지면 의인이 되기 때문이다. 고욤나무에 좋은 감나무를 접붙이면 되듯, 악인도 접붙이면 의인이 된다.
43. 하나님은 <자동장치>로 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준다. 내가 있으나 없으나 기계는 돌아가고 있다.” 하셨다. 지구라는 세계는 하나님이 옆에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쳐다보지 않아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44. 하나님이 자동장치로 만들어놔서 때가 되면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 스스로 심판, 스스로 꺼림, 스스로 판단하도록 뇌에다 양심이라는 코드로 꽂아놓았다.
45. 양심은 피할 수없이 자꾸 생각난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서 잊으려고 술을 마시지만 그래도 자꾸 기억나고 생각난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46. 꼭 죽어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도 지구에서도 괴롭기만 하면 그것이 지옥이고, 기쁘면 천국이다.
47. 선생은 크면서 필요 없는 일을 안 하게 매일 기도하며, 인생을 그렇게 사는 데에 전념했다.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법이다. 필요 없는 일을 하면 흑자 난 것이 적자로 가 버린다.
48. 선생은 필요 없는 공부를 하지 않고 15살에 바로 수도 길을 떠났다. 결국적으로 필요 없는 공부를 안 한 것이 잘한 것이 되었다. 학교 다니는 10년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서 10년을 질러가게 되었다.
49. 선생은 평소 하루를 두고 볼 때도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한다. 안 할 일은 싹 안 해 버리고 다른 필요한 것만 꼭 한다. 그만큼 시간을 엄청나게 아껴 썼다.
50. 시간은 <인생>이고, 시간은 <하나님>이다.
51. 선생이 이만큼 젊고 건강하게 뛰는 것은 시간을 아끼고 필요 없는 일을 안 해서이다. 괜히 필요 없는 일을 했으면 많이 망가졌을 것이다. 필요한 것만 하니 몸이 망가지지 않았다. 결국은 또 필요해서 후에 대학을 가고 간판을 따기도 했다.
52. 선생은 조금 배우고 많이 써먹는 입장이었다. 모래만치 배우고 바위만치 써먹는 것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이다.
53. 하나님은 하나 가르쳐 주고 “지구상에 있는 것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든다.” 하신다. 하나를 배우면 만 가지 역 가지다 배운다.
54. 여자 하나만 보면, 모든 여자의 구조가 똑같이 생겼다. 다만 피부색과 성격이 구분될 뿐이다. 하나로 분석하면 다른 사람을 분석해 본 것과 같다.

55. 한 명에게 설교를 잘 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대로 해 주면 다 은혜를 받는 격이다. 그러니 할 때에 확실히 해야 된다.
56. 술도 필요 없고, 담배도 필요 없고, 필요 없이 노는 것은 하지 말고, 무리하게 운동도 하지 말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내지 말아라.
57. 선생은 필요한 시간만 쓰다 보니까 이만큼 인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꼭 필요 없는 잠도 잘 필요가 없다.
58. 필요 없는 시간을 쓰지 않고 할 때 최고가 된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나머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지나치면 안 되고 체질이 돼야 된다.
59. 나이 먹고 더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젊었을 때 5년을 빨리 뛰어라. 나이를 더 먹으면 할 일을 못 하고 가만히 식물인간 같이 있다가 죽으니 아무것도 아니다.
60. 젊었을 때 많이 뛰어야 된다. 젊었을 때 많이 뛰 사람은 선생 같이 천 년을 산만큼 사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통 100년을 살아도 특별히 해 놓은 것이 없다.
61. 선생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만년 동안 못 만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았다. 재벌가도, 정치가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못 한 일을 했다.
62. 정치가도, 재벌가도, 기독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이와 같이 시대 신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구원받고 휴거되고 시대 깨닫고 하는데 어려서 못 한다고 한다.
63. ‘검사’하는 사람이 <검사>고, ‘검토’하는 사람이 <검사>다. 문자만 생각하고서 검 들고 휘두르면 안 된다. 그러니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났다고 여지없이 하나님께 보고한다.
64. 시대 지도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죄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나님께 보고했다. 그러니 전부 지러 들어간 것이다.
65. 그들은 잘못 판단했다. 대통령이 되면 목숨을 걸고 희생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매일 피부 관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또는 낙동강을 막아서 뚝 강을 만들어버렸다. 썩어서 냄새가 폴폴 나고, 다시 썩어서 땅이 되었다.
66. 대통령들이 필요 없는 일을 했다. 정치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해야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한다.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러하다.
67. 죄 짓는 것을 검사에게 검토 받지 말고 판사에게 판단 받지 말아라. 늘 평소에 싸우지 말고 폭력 쓰지 말고 조폭에 기울지 말고 문신 새기지 말아라.
68. 어떤 자는 문신을 새겼다가 파낸 것이 평생 한이 된다고 했다.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크니 늘어나서 형편없이 시퍼렇게 무섭게 되었다고 했다. 자녀들 앞에 이것을 보일 수 없어 여름철에도 안 보이려고 긴 팔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린다고 했다.
69. 어떤 사람은 미술을 너무 좋아해서 일반적으로 그리다가 문신을 해버렸다. 나중에 가서는 후회가 된다고 했다.
70. 문신은 절대 하지 말아라.
71. 운동선수들 중에 문신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는 일을 하니 너무 혐오를 느끼고, 흉측을 느끼고, 아름답지 못하니 그들의 인기가 떨어지게 해 달라고 했다. 지난 번 월드컵경기에서 문신 새긴 사람이

들어가서 선생이 화가 나서 응원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패널티킥으로 지게 되었다.

72. 매사에 하나님의 모임에 참여하라. 안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행사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다. 안 하는 이유를 달자면 끝이 없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이유 달 것이 많다.” 하셨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할까 말까 하는 것은, 무지해서 생기고, 또 심리적으로도 생기고, 또 습관이 돼서 생기고, 그리고 모두가 게을러서 생기고 이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뜨겁게 깨우쳐 주시고 생활로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도 할까 말까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절대로 성령께서 용납지 마시고, 할 일을 두고 안 하고는 역사를 펴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모두 이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 것! 꼭 필요한 일만 할 것! 그러면 이들은 인생 70일을 살아도 100살 만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한 일만 하게 되면 인생 일생을 살아도 천년 동안 산만큼 많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세계의 각 나라, 그리고 섭리세계, 종교의 세계들, 천주교 기독교 할 것 없이 모두 지구상의 종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한 일만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후에 평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가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이래서 이를 놓고 기도하니, 불의를 행한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며, 악인들은 찢값으로 그곳에 가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고난 후에 영광의 세계가 와서 민족도 평화의 세계가 오게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가까이 가서 친근하게 얘기하고 말 할 수 있는 여건까지,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자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모두 듣고 배우고 깨달았으니, 그렇게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한국에 있는 자들과 세계 각 나라 모든 자들,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해서 이들이 할 것을 반드시 하고 안 할 것을 반드시 안 하면서 행하겠다 했으니 그렇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3.16>은 탄생의 날이기도 하지만, 성장된 자로서는 ‘휴거’를 의미하기도 한다. <휴거>는 ‘결혼식 날 밤’이다.
2. <17>은 세계적으로 혁명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3. 자지 않고 뜯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것도 하나의 혁명적인 일이다. 첫 날 저녁에 잠자는 것이 아니듯,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에 잠을 자면 되겠느냐. 자면 첫날 저녁에 임신을 못 한다.
4. 말씀을 듣고 말씀 임신하면 그 다음에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 있다. 대개 말씀을 절대시 하고 깨닫는 자들이 전도를 하게 된다. 말씀을 안 듣고서 새로운 역사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자는 없었다.
5. 시대 말씀을 정말 무섭게, 강하게 들어야 된다.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된다.
6. 선생은 말씀을 아홉 번 들었다. 그러면 뇌에 세뇌가 되고, 박혀버린다. 그런데 행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20년이 걸렸다. 전도도 해 보고, 환자도 고쳐 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배웠다.
7. 그때 당시는 1년에 만 명씩 복음을 전해보았다.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성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다. 그때 기성에 가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오는 사람들도 있다.
8. ‘할까 말까’ 하고 따지면 못 하게 되어 있다. 무조건 해 버려야 된다.
9. 영성캠프에서 ‘날을 새나 안 새나’ 할 때 아침 설교를 생각하니 안 되겠다고도 생각했지만, 따지지 않고 현실만 보고 무조건 해 버렸다. 지금 분위기에 ‘지금이다. 입 벌렸을 때 집어넣자. 입 다물었을 때는 약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는다. 순간의 찬스를 잊지 말아라.’ 하고 해 버렸다.
10. 첫 번째 못 하고 두 번째 하려면 가중되게 힘이 든다. 첫 번째보다 배로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각오를 하고, 연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비하고, 밤잠 못 자고 특수 훈련을 하며 그때를 기다려서 하는 것이지, 그냥은

못 한다.

11. ‘하자. 문힌 김에 해 버리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버리자. 한 김에 해 버리자. 할 때 해 버리자. 판 식으면 힘들다. 땀 난 김에 뒹자. 식은 죽은 아무래도 다르다. 뜨거웠을 때 해 버리자. 달았을 때 해 버리자. 요때 하자. 흥분 났을 때 사랑하자.’ - 이런 연속되는 단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12. 잠을 안 자고도 피곤을 푸는 법이 있다. 잠은 피곤해서 자니, 피곤을 풀어버리면 잠을 잘 필요가 없다. 피곤한 것을 운동해서 풀어버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서 풀어버리고, 각종 각색으로 풀어버리면 잠을 안 자도 된다. ‘나는 잠을 잘 수밖에 없다.’ 하고 자꾸 생각하면 잠을 자야 된다.

13. 할까 말까 이유 달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해 버리면 된다.

14. 선생이 산에서 기도 생활할 때 불가능했다. 집에서 농사를 지으니 형제들이 나갔을 때 내가 안 하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뒤통까지 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했다. 선생이 빠지면 금방 표가 나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15. 선생은 농사를 지으며 일생동안 지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끔찍했다. 결국 “농사 안 짓고도 잘 살 수 있다. 사람들이 저 봐라 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께 약속만 받았다. 당세에 보여 줄 것이다. 형제들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할 것이다.” 하고 큰소리를 쳤다.

16.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항상 큰소리치며 예언하게 하신 것이었다. 근거가 없으면 그 후에 성공해도 자랑을 못 하기 때문이다.

17. 하나님은 예수님을 놓고도 큰 소리를 팡팡 치셨다. 결국 그대로 되고 말았다.

18. 어머니에게도 “형제들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세단 차를 태워 주겠다.” 고 했다. 결국 석막리에서 선생이 제일 먼저 세단 차를 타고 다니며 어머니를 태워 주었다.

19. 예전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부인도 지켜 주고 아들 기도도 해 주면, 차도 주고 선교비도 주겠다고 했었다. 선생이 “하나님이 나를 점찍어 놓아서 다른 데로는 못 간다.” 했더니, 자기 위신을 꺾고 자존심을 꺾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한 사람이 얘기해 주었다. 그 소개한 사람은 지금 교회에 나온다.

20. 하나님은 항상 주인이 되어서 선생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셨다.

21.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정주영 회장은 하나님께서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넣어 주시며 할 말 다 해 주고 이말 저말 다 해 주었는데도 안 믿었다. 결국 대통령도 안 되고, 너무 신경 쓰니 마지막 때는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고 살았다.

22. 인생 그렇게 거부가 되고 나라의 재벌 왕이 되어도 죽음은 온다.

23. 사람이 죽으면 동전 하나 못 가져간다. 그런데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원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대로 해 준 사람들, 휴거된 자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해 주신다.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가서 그 세계에서 길이 빛나게 쓴다.

24. 가령 너무 좋은 소나무를 심어놓고 죽었다고 하자. 그 소나무를 보기 위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그 소나무를 그대로 옮겨 주시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25. 이는 성약역사 때 인봉이 떼어진 것이다. 누구라도 한 번 죽으면 끝나서 가지고 갈 자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가지고 갈 수 있다. 육은 이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영은 영적인 존재물로서 가지고 갈 수 있다.

26. 월명동도 이미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땅에 예루살렘을 세운 것이다. 그대로가 아니라 영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시켜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

27.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 좌우되고, 정신 차리는 대로 좌우된다.

28. 그 날은 주의 얼굴을 대하고 본다고 했다. 섭리사 모든 사람들은 화면으로 본다고 화면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주가 직접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현장감이 있다. 그 전에 선생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듣고 눈물로 기도하던 때를 생각하라.

29. 습관을 벗어버리고, 습관을 고쳐버리고, 습관을 잘라버리고, 말씀의 검으로 단 칼에 잘라버려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제 말씀을 듣고, 모든 이들을 축복하노니 잘 되고 형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모두가 새벽예배에 갈까 말까, 일어나는 것도 일어날까 말까 하지 말고 하라 했습니다. 모든 만사의 일들도 할까 말까 할 때가 많습니다. 몰라도 할까 말까 하지만, 알면서도 역시 걱정 돼서 할까 말까, 습관 되어서 할까 말까 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으로 손해가 갈까?’ 해서 할까 말까 하지만, 이유도 필요 없이 목적을 향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모든 섭리의 사람들 위애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행사들을 계획하니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행해 주시고, 그리고 구상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성자의 말씀이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눈보라가 치니 모든 이동하는 차량과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호신은 오직 하나님이니 오늘도 무사히 행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은 정말로 미끄럼판 위의 운전들 근신하며 잘 하게 축복 해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처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승리와 패배>는 항상 ‘마음’에서 오고, ‘행하는 데’서 온다. 행하고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마음을 어떻게 먹고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도 실패도 결정되고 좌우된다.

2. 항상 어느 편에서 행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승리’ 혹은 ‘자신에 해당되는 인간 승리’인지 판단하고 알 수가 있다.

3.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행했다면 ‘영원한 승리, 참된 승리’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육적인 세계로 자기 주관대로 행했다면 꼭 행할 일을 행했을 지라도 ‘개인적인, 육적인, 육신에 해당되는 승리와 성공’으로 본다.

4. 수학의 공식이 그러하듯 모든 인생의 답들도 천층만층 크게 구분하는 가지의 수가 많고, 엄격히 따지고 분석하여 분별할 사건이 많다.

5. 승리했다고 해서 같은 승리가 아니다. - 어느 차원으로 승리 했냐, 어느 급의 승리냐, 개인전의 승리냐, 민족단위 승리냐, 개인 전도의 승리냐, 전체에 해당되는 중고등부의 승리냐, 혹은 어느 편의 승리냐, 주의 편에 속한 승리냐, 주에게서 벗어난 승리냐, 혹은 섭리사 전체의 승리냐, 각 기관에 해당되는 승리냐, 혹은 어느 시대의 승리냐, 지나간 과거에 속한 승리냐, 지금 현실의 승리냐, 혹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단계의 승리냐, 큰 대대적인 역사적인 승리냐, 그 해의 승리냐에 따라 다르다. 이같이 승리나 성공도 분석해서 보는 것이다.

6. 선생이 그림을 그리면 인을 찍기도 하지만 사인을 한다. 사인에 이름이 있다. 이름은 ‘쪼개서 해석하는’ 이름이다. 그냥 해석하면 답이 없다. 쪼개서 도막도막 가닥가닥 분야분야 쪼개서 해석해야 된다.

7. 그 이름은 하나님이 분석하고 확실하게 답을 알라고 주셨다. 한글로 하면 ‘석’자요, 한문으로 해석하면 ‘석(析)’자. 분석할 석, 해석할 석이다. 여기에는 ‘도끼 근(斤)’이 들어있다. 도끼는 나무를 쪼개는 일을 한다. 쪼개는 것은 칼도 못 따라가고 톱도 못 따라간다.

8. 선생은 무엇을 봐도 꼭 하나하나 쪼갬다. ‘잘했다’고 하면 ‘누가 잘 했냐, 어느 분야 사람이 잘 했냐, 어느 시대 사람이 잘 했냐.’ 쪼개서 봐야 정확한 답을 안다.
9. 승리의 가짓수를 따지면 70억 가지가 넘는다. 사람마다 각각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10. 천재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천 가지를 알고, 만재는 만 가지를 안다.
11. ‘하나님이 세상을 도우셨다’ 하면 ‘한 번씩 도와줬다’고 해도 70억 가지를 도운 것이다. 그러니 한 명 앞에 한 번 켜만 도와줬어도 70억 번 도와준 것이다.
12. 개인으로 봐도 하나님이 일인당 수백 가지씩 도와주신다. 매일 도와주시는 것을 대강 봐도 지구촌에 200억 번 이상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무한대로 수를 셀 수없이 많다.
13.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20~30가지는 된다. ‘태양 비춰 줘야지, 바람 불게 해 줘야지, 공기 순환 시켜 줘야지, 사고 안 나게 지켜 줘야지, 사탄한테 당하지 않게 지켜 줘야지, 바보 되지 않고 정신이 이상하게 되지 않게 지켜 줘야지, 헛짓하지 않게 지켜 줘야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지켜 줘야지.’ - 이같이 특별히 지켜 주는 것을 빼고 기본적으로 지켜 주는 것만 쳐도 몇 십 가지는 된다.
14. 또한 그 터전 위에 그때그때 기도했을 때마다 들어 주신다. 아예 지구촌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모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되어 지게 해 놓았다.
15. 하나님이 바쁘시니 자동장치로 해 놓았다. 지구도 자동적으로 계속 돌게 만들고, 해도 자동적으로 계속 비추게 만들고, 때가 되면 밤이 오고 낮에 되게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16. 한 회사의 CC카메라도 24시간 계속 돌아가듯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밤낮으로 불꽃같이 지켜 주신다.
17. 선생은 어려서 성경책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쳐다보시면 다른 일을 못 하시겠구나.’ 했다. 나중에 보니까 하다못해 쇠불이 카메라도 밤낮 24시간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있어도 돌아가고, 없어도 돌아간다.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신다.
18. 사람은 늘 지킨다고 해서 밤낮 지킬 수가 없다. 부모가 아무리 어린아이를 지켜도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수는 없다. 그러면 자기 생활이 되지 않는다.
19.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고 따질 때는 해석을 못 했는데, 하나님으로 보고 따질 때는 답이 나왔다. 마치 태양이 밤낮으로 비추듯이, 공기가 밤낮으로 항상 존재하듯이, 지구가 밤낮으로 돌듯이,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20. 영으로 해석해야 답이 나오지, 육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온다.
21. 성경에 보면 육으로 해석할 것은 육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해석할 것은 영적세계로 해석해야 답이 나오지, 육적인 세계로 해석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오고, 영적으로 해석할 것을 육적으로 해석해도 답이 안 나온다.
22. 하늘 세계는 영으로 오시고 땅에서는 육으로 보내어 일체 되어 행하시는 일이다. 기성시대에서는 영으로 해석할 것을 육으로 해석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23. 우리는 ‘기다리면 가리라.’ 한 대로 제대로 풀고 기다리니 딱 왔다. 기성은 제대로 풀었다고 기다리는데 그 고집과 그 교만으로 그리도 아는 체하고 그리도 무시하더니 결국 수백만, 수천만, 수십억이 그대로 당하고 말았다.
24. 기독교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주장,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하는 유대 종교인들의 주장, 전통과 기존성만 그렇게도 내세우는 구시대 사람들의 주장은 모두 완전히 폐해버렸다.

25. 주를 미쳤다고 보고 따르지 않아서 망한 것이다. 일반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를 안 따랐으니 영원히 망한다.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는 것이다.
26.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사람은 하나, 선생이라고 할 사람은 하나, 메시아라고 할 사람은 하나다!
27. 시대적인 것으로 쪼개서 따져야 답이 나온다. ‘예수 구세주’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대를 쪼개서 보면 아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쪼개서 보면 각각 다 있다.
28. 쪼개면 답이 나온다. 항상 문제에서 답이 온다. 문제에서 답이 안 오는 것은 답이 아니다.
29. ‘구상’하면 ‘구상’에 해답이 있지 다른 데 있지 않다. 지혜자가 아니고 천재들이 아니니 딴 데 가서 헤매는 것이다. 문제 ‘구상’하면, ‘구’에서 찾고 ‘상’에서 찾아야 된다. 구상에 해당되는 답은 9가지도 될 수 있고, 크게 하면 90가지도 있고, 더 크게 하면 900가지도 된다.
30. 해석을 잘못된 종교들은 망했다. ‘구름타고 온다.’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인간 구름 타고 왔다.’는 해석은 잘 한 것이다.
31. 메시아는 기다리는 자에게로 간다. 예수님도 기다리는 자, 자기를 시인하는 자에게 갔다. 시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림자도, 발자국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신다.
32.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니 시인했다. ‘시인’은 가르쳐 줘야 알고 하는 것이다. 하나하나 조금씩 가르쳐 주니 알게 되고 깨달은 것이다.
33.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하나 깨우쳐 주면 안다. 아니라면 하나하나 깨우쳐 줄 수가 없다.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에 대한 냄새를 못 풍긴다. 메시아에 대한 인품을 못 풍긴다.
34. 돼지가 아니고서는 돼지의 냄새도, 돼지의 맛도, 돼지의 구조도 못 나타낸다.
35. 속인 것들은 그 날이 되면, 말세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 앞으로 드러나도 괜찮은 일들을 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드러내 주신다. 진짜도 드러나고 가짜도 드러난다.
36. 30년 전, 4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재림주,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도 많았다. 그런데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 사람을 구원치 않고 딴 짓들을 하고 있었다. 구세주는 구원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데, 고기나 잡으러 다니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37. 권투선수는 권투를 하고, 축구선수는 축구를 하듯이 구세주는 구세주가 할 일을 해야 된다.
38. 메시아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안다. 성경을 틀리게 해석하면서 주장하는 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3초면 알아본다. 인상만 봐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알고, 느낌만 봐도 알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다.
39. 선생이 세계 복싱 대회 하는 것을 보며 말하길, “나도 사탄과 그와 같이 싸우고 이겼다. 그냥 싸워 이긴 것이 아니다.” 하였다. 40년을 그와 같이 싸웠다.
40. 운동선수도 그냥 보면 모른다. 선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기다리는 재림주라고 하면 믿지 않는다. 너무 엄청나게 큰 사명자이기 때문이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지구상에 최고 주먹을 휘두르는 권투 왕 중의 왕이다.” 하면 잘 안 믿을 것이다.
41. 그냥 박서는 모르지만,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안다.

42. 메시아의 머리가 얼마나 비대한지, 하나님이 “네가 말 안 하면 지구촌 전체가 와도 모른다.” 고 하실 정도다.
43. 같이 늘 생활하니 자기 애인이 생각하는 것을 맞춰야 된다. 연구를 많이 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배워야 신부로서 혜택을 많이 본다.
44.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어보기’다.
45. 전도 길은 70억 가지다. 성경에 ‘양을 각각 인도한다.’ 는 말에 70억 가지라는 말이 들어있다. 70억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전도하는 방법도 70억 가지다.
46. 천재들은 문자대로만 안 따진다. 영계에서 연결시킨다.
47. 세상에 전도 안 해도 될 사람이 있다. 이는 <메시아>다. 구세주는 누가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세주는 하나님이 전도하신다.
48. 항상 행동적인 것을 보고서 분별하고 하나님께 올려 준다. 행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타고나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영향 받는 것이 있어도 해야 된다.
49. 할 때 확실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존재 세계에서조차 밟힌다. 완전히 뛰는 놈이 옆에 오른다.
50. 강원도에서 한 SS가 교회가 너무 작고 기분이 안 나서 가기 싫다고 주님의교회로 가겠다고 했다. 선생이 하나님께 올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춘천에도 교회를 해 주었는데, 그 후에 교회를 안 나와서 나중에 아주 혼이 났다. “너로 인해 교회를 해 주었는데 안 가면 큰일 난다.” 하고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 말씀하셨다.
51. 똑똑한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다.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다.
52.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성경에 답이 있다. 성경을 그와 같이 풀어서 시대 역사를 찾아내고 풀었다.
53. 항상 이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행하고, 망설이지 말고 어차피 할 일을 싹싹 행하는 습관, 버릇, 생활을 하라.
54. 금년도는 <선교하는 해>다. 그것을 핵으로 극적으로 더 이상 없이 표현한다면, ‘매일 선교하는 날’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뛰고 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항상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앉아있는 모든 중고등부, 이제 영성캠프를 하면서 말씀을 따로 듣고 있지만은 이들이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역시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뜨겁게 뛰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온 섭리 사람들이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뛰는 자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사탄과 마귀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힘 있게 능력 있게 뛰어서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해 주시고 육신 돼서 우리가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와 온 민족과 세계 위에 각 교회마다 충만하고 영원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할 일을 두고 망설이지 말고, 이것을 할까 말까 하지 말고, 행할 일은 1초라도 넘기지 않도록 늦지 않도록 하라.
2.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할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라.

3. 꼭 정기적으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일일지라도 실제 그 시간에 처하면 망설이게 되고 할까 말까 하게 된다.
4. 꼭 해야 될 일인데도 자꾸 지체를 한다. 그러다가 흔히 못 하게 된다. 정기적인 새벽기도처럼 꼭 자기가 책임질 일인데도 어느 때는 미루다가 안 해 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착오도 생기고 그에 따른 일까지도 연결돼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5. 작은 일인데도 어렵고 힘들게 행해진다.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몸이 말을 안 들으면 못 한다. 아파도 못하고, 다른 일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못하기도 하고, 여건이 안 돼서 얻을 수가 없고, 환경이 안 돼서 환경을 맞출 수 없는 일들이 있다.
6. 그럴 때는 기도하고 잘 다뤄나가며 행해야 된다. 그럴지라도 행하면 사라진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처리해나가니 처리가 된다. 그러나 이유를 달면서 안 하면 못 한다.
7. 주가 하나하나 겪은 것들이 말씀이 되어 나간다.
8. 사람들은 어렵다고 못 하고 아파서 못 하는데, 하면 된다. 주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자기 처세를 하면서 하면 된다.
9. 공적 일을 할 때나 개인의 일을 할 때 보면 설 때는 쉬고 풀어 줘야 다음 코스를 뒀을 때 이상이 없다. - 이런 것이 '생활의 지혜'다.
10. 뛰는데 잘 뛰어야 된다. 잘하지 못하면 A급으로 안 되고 B급으로 뛰고 끝나게 된다. B급으로 뛴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고 알기는 알지만 거의 모른다. 자기가 한 일이 다 잘했다고 본다.
11. 자기 삶을 볼 때 '더 잘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완성한 다음에 봐야 알 수 있다. 시간에 대한 것도 일을 할 때는 잘 모른다. 해 놓은 것을 볼 때 안다. 선생은 이를 10대 때부터 터득하고 그때부터 지켜온 것이다.
12. 시험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채점할 때는 아는 것처럼, 자기 인생 역사도 섭리역사도 마찬가지다.
13. 선생은 '선생이 할 몫', '식구들이 할 몫'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이는 몸이 되니 따져보고 계산을 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것을 일찍 깨닫게 되었다.
14. 혼자서 한 것은 했으나 안 했으나 표가 잘 안 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는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많은 얘기가 들려온다. 그러니 해야 된다.
15. 인생을 살 때 그냥 살면 맛이 없다. 잘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야 한다.
16. 음식도 주는 대로 먹으면 자기 체질에 맞게 해 먹기가 어렵다. 유명한 식당이라도 전체 평균화를 맞춰서 음식을 해 주지, 개인에게 물어보고 맛을 맞춰서 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17. 왕이 하는 계산법은 백성이 하는 계산법과 다르다. 만왕의 왕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갖춰야 한다.
18. 천왕은 메시아 하나밖에 없다. 온 세상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린다. 주가 따질 때는 한 나라만 따지면 사람이 많아도 아주 작게 본다. 한 나라가 월명동 골짜기를 다 채웠다 해도 작게 보지만, 15개, 20개 나라가 작은 건물에 왔다 하면 크게 본다. 전체를 보고 절대적으로 따지는 비율이 있다.
19. 메시아라면 메시아만큼의 말씀을 내놓고, 만왕의 왕이라면 만왕의 왕만큼의 음식을 만들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 지구상의 자료는 똑같다. 누구든지 시장에서 사올 수 있다. <주>라고 해서 <주>만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음식 자료로 만드는데 다른 맛을 내는 것이 ‘능력’이다, ‘손맛’이다.
21. 지구상에 백과사전을 다 갖다놓아도 <주>의 머리만큼은 모른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을 다 빼냈기 때문에 그만큼 큰소리를 쳐도 괜찮다.
22. 10대들은 아주 미식가들이다. 왜? 뇌 감각이 가장 살아있을 때, 가장 정력이 불탈 때가 ‘10대’이기 때문이다. 인생 일생동안 그 때를 못 따라간다. 힘도 엄청나다.
23. 송편 만들 때도 보면 ‘조리법’에서 차이가 난다. 물의 양이 다르고, 반죽을 얼마나 했는지, 발효법, 시간의 강도, 불의 강도를 맞추는 것이 ‘감각’이다.
24. 선생은 뼈를 맞출 때도, 말씀 전할 때도 이 같은 감각을 사용한다. 말씀을 전할 때도 ‘조리법’이다. 말씀을 잘 조리 해서 주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는 자신 있다.
25. 예전에 선생이 말씀 전한 것을 보면 과감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세력 있게 했다. ‘주’라서 거침없이 했다. 이제는 노련하게 한다. 세밀하게 자상하게 한 마디 한 마디 똑 소리 나게 해 준다.
26. 주는 언제나 여전하게 말씀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부린다.
27.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가 왔어도 자기 소원이 풀려야 기다린 보람이 있다. 소망을 못 풀어놓으면 기다린 보람이 없다. 여기에는 자기도 책임이 있고, 소원을 풀어 주는 자도 책임이 있다.
28. 성서에 말하기를 ‘소망을 더디 이루게 되면 심령이 상하니라. 생명나무 되는 것이 소원인데 못 되면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느냐.’ 하였다.
29. 전체적으로 휴거 역사에 다 진행해 왔다. 그것을 이룬 사람은 좋고, 이루고 있는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와 같이 저마다 소원을 다 풀어 줘야 된다.
30. 어딜 가나 올바른 행실의 자세가 안 되면 신앙의 척추가 휘어져 병이 된다. 자기 고통이 계속 오니 안 고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역사도 그러했다. 신약역사도 척추가 휘어져 비대칭의 역사가 되어버렸다. ‘공중에서 주가 온다. 구름 타고 온다.’하며 공중을 쳐다보니 모가지가 휘어지는 병에 걸린 것과 같다.
31. 역사는 ‘척추’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니 딴 데로 가고 있다. S자를 그리면서 왔기 때문에 그 통증으로 아파서 못 기다리는 격이다.
32. 우리는 바른 말씀, 바른 주로 해석 하고 그대로 오니 그런 고통이 없다. 시대를 잘 맞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가니 이상이 없다.
33. 안마법에 병들면 안마가 체질화 되고 중독이 되어버린다. 이를 운동법으로 바꿔야 한다. 운동해서 풀어지면 날아진다.
34. 항상 주로 먼저 경계 하고 그것을 전해 준다. 힘들고 어렵고 그 전 날 무리해서 못 한 것도 있겠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는 자가 승리하고 성공한다.
35. 지금은 하나님이 크고 엄청나게 축복을 주시니 사명을 못 하면 표가 팍팍 난다. 따라갈 수가 없다.
36. 하나님이 주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현장에 참석하는 자와 아닌 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상수도 못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혼까지 차이가 있어 빛나는 데까지 차이가 날 정도다.

37. <주>가 실제로 나타나기를 2000년을 기다리고, 4000년을 기다리고, 6000년을 기다려왔다. 그 차이가 그리도 크기 때문이다.

38. <메시아>는 성경 예언만 이론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한다.

39. 결혼해서 첫날 저녁에 관계하고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듯 지금은 신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말씀을 주는 시간이다.

40.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저녁에 이성 사랑하면 순간이고, 그것이 오래가봐야 100년이다. 그러나 말씀 들은 것은 천 년을 가고, 이를 확대시켜보면 영원히 간다.

41. 그러므로 뇌에 말씀을 넣고 접목시켜 준다. 이것을 가지고 일생동안 살면, 시험 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간다.

42. 항상 주가 하나님의 육신 되어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잘 하도록 하라.

43. 아파서 힘들어서,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어서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은 기어이 하고 말았다. 말씀도 기어이 일필휘지로 글을 쓰듯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대언해 줬고, 세밀히 이것저것 골고루 다 해주었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들이 자기 소망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게 해 주었다.

44. 사람이 극적으로 처해있을 때 못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했습니다. 금주에는 ‘할까 말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매듭짓는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모두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도 이리저리 해 주었습니다. 모두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는 실제 보니 복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왕들도 보고자 했고 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그가 와서 행하는 걸 보고자 원했는데, 너희는 복으로 복 있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행하는 일들이다. 이것을 깨닫고 행하라.” 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풀어 주고 관리를 하라> - 이 말씀의 근본을 여러 종류로 깨달아야 된다. 각 사람마다 다르니 해당되는 대로 말씀을 쥐야 행할 수 있다.

2. ‘풀어 준다’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준다는 것, 하나님의 모든 숨겨진 말씀이 때가 되어 풀어진다는 것이다.

3. 정확하게 성경을 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대가 왔어도, 행했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뜻을 못 이룬다.

4. 시대를 볼 때 역사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풀었는데 잘못 풀었기에 하나님의 시대가 와도 맞지를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역사로 조립이 안 되었다.

5. ‘주와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됐다.’, ‘성령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마음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 되어야 하지만, 뜻을 깨닫고 행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야 같이 끼어서 가게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따로 노는 부속품이 된다.

6. 차의 부속품 하나, 엔진 하나 가지고는 차가 될 수 없다.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100% 다 결합시켜야 그때 차가 움직인다. 이와 같이 혼자서 아무리 부속품 역할을 해도 원동력을 만들 수 없고 하나의 존재물을 만들 수 없다. 뜻을 펴 수가 없다.

7. 마치 별통의 많은 꿀벌들 속에서 혼자서 꽃가루를 묻고 온다고 해도 혼자서는 꿀을 못 만드는 것과도 같다. 수만

마리가 같이 결합하고 만들어야 꿀이 된다.

8. 섭리사를 떠나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편다고 했지만, 이는 마치 벌이 벌집을 떠나서 몇 마리씩 모여서 꿀을 만드는 것과 같고, 벌집이 아닌 나무 잎사귀에다 꽃가루를 붙이는 것과도 같아서 꿀이 만들어지지 않듯 뜻을 펼 수가 없다. - 하나님이 이런 근본을 성자를 통해 일찍부터 가르쳐 주셨다.

9. 섭리사를 떠나가서 누가 뭘 만든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안 만들어진다. 말씀도 30개론만 계속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10. ‘하나님이 보낸 자’만 하지, 다른 사람은 못 한다. 30개론을 가져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행해도 새로운 역사가 안 된다. 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11.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지만, ‘휴거’는 안 된다. 메시아만이 ‘인’을 받으니,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대로 해야 휴거가 된다.

12. 기성 교회도 새로운 시대 말씀을 적용한다. 우리에게는 아니라고 불신하고서, 자기 교회에 가서는 그 말씀을 전해 준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역사가 펴질 수가 없다.

13. 새로운 역사는 마치 차의 부속품 500가지면 500가지, 700가지면 700가지를 다 조립해야 차가 완성되어 움직이듯,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해야 이루어지지, 그렇게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

14. 많은 종교의 교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갔어도 그 뜻을 못 이뤘다.

15. 큰 교파들이 엄청난 인원을 자랑해도 그 말씀을 보면 뜻이 아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주관권의 뜻을 이룰 뿐이다.

16.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뜻은 못 이뤄도 자기들이 만든 주관권의 뜻을 이루고 그 주관권의 족속은 만들 수 있다. 그 족속이 몇백 년씩 가기도 하고, 당세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17. 시장의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듯이 한국의 어떤 종교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이 보내서 역사한다.” 했지만, 처음에만 엄청나게 모여들지, 몇십 년 있다가 없어진다. 절대적인 새로운 물건이 나오니 사람들이 옮겨 버려서, 그 집이 문을 닫는 격과 같다. 한국에 많은 종교들이 그리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18.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천 년 역사로 영영하게 흘러간다. 이 시대 당세도 물론 알아볼 수 있지만, 천 년까지 가야만 온전한 종교가 된다.

19. 많은 종교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사람의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행하는 데에는 시대도 안 맞고 때도 안 맞고 내용도 안 맞다.

20. 여호와증인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다. 그들의 이론을 들어 보면 “영은 없다. 육신이 하나의 영이다. 영원한 세계는 없다. 이 세상만 있다.” 한다.

21. 여러 종교를 접한 사람들이 섭리사에 온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파는 다 접하고 몇십 년에 걸쳐 교리를 배웠는데, 맞는 교리가 없더라고 했다. 이치에 합당치 않고, 모순이 있고, 사람의 지능으로 봐도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을 배워 보니, 여기는 흠 잡을 수 없이 성경과 일체 되어 있고, 풀어 주는 성경 말씀이 확실히 답이라 했다. 그러니 섭리 교회를 평생 다니겠다고 했다.

22. 어렸을 때는 한 가지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런데 크면 동서남북을 다 보듯이 여러 가지를 보니 다르다.
23. 어른이 되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연구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길이 들어서 세뇌가 되고 중독이 되어 커서도 그와 같이 한다.
24. 성경도 한 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르게 말씀한 것이 있다. 기록자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25. 가령 가룟 유다만 봐도 한 제자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고 하고, 하나는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했다. 자기 위치대로 보고 얘기를 한 것이다.
26. 성경은 잘 풀어야 된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교파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교리가 되고 교파가 되어 각각 가르친다.
27. 가룟 유다가 불신하고 죽은 것만 알면 되지,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상관없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구원 문제가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28. 성경학자들이 괜히 논하지 않을 것은 논하고, 논할 것은 못 논했다. 재림론, 메시아 강림론, 휴거론, 부활론은 자세히 보면 성경에 다 나온다.
29. <불 심판>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소돔 땅을 불로 심판하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주 주일, 수요일, 새벽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의로운 말씀으로 선도 악도 깨닫게 만드신다.
30.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하는지도 모른다. ‘불로 심판하는 것’만 심판으로 생각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타락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는 ‘불’로도 심판하고,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하기도 하셨다.
31. 하나님은 사람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세 앞에 처한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다.
32. 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 사람은 행위가 잘못되어 말한 것이고, 저 사람은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말한 것이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말씀하셨다.
33. 말씀을 풀 때 기도만 해서 무조건 푸는 것이 아니다. 처한 상황을 보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입장으로는 성경을 못 푸는 것이다.
34. 옛날에는 성경을 풀기 어려운 것이 없었다.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대 성경을 써 놓고 가면 이후 사람들이 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풀고 말 것도 없다. 현실에서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35. ‘자세히 성경을 풀어 주더라.’ 이 말씀도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잘 모른다. 자기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서 풀어 주든지, 예수님이 나타나서 풀어 주셔야 된다.
36. 선생이 행한 일은 마음대로 판단을 못 한다. 선생에게 와서 말을 들은 자만 안다. 말하기 곤란한 것은 이렇게 했어도 저렇게 했다고 말씀해 놓고 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
37.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끼리 처음에는 안 죽었다고 했다. 결국 예수님이 영으로 방 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너희 평강을 빈다.” 하시고 사라졌다. 그 육신을 봤으면 본 자가 ‘육신이 살아나셨다.’고 바로 기록했을 것이다.
38.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 “아닌 것은 아닌 답이 수만 가지로 나온다. 맞는 것은

맞는 답이 수만 가지로 나온다.” 하셨다.

39. 성경에 육신이 살았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다. 모두 영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다. ‘살아 있는 자는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죽은 자는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이는 육신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육으로 안 자는 육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허탕 친다.

40.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우리가 육신 세계 보듯이 항상 보시니 우리같이 영계를 봤다고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육신’으로만 안다. 그러니 평생 실천해도 안 된다.

41. 하나님이 보냈어도,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다. “매일 옆에 같이 있다. 내가 너와 같이 말하고 행하리라.” 하신다.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는 뜻을 못 편다. 하루만 함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을 그날은 못 펴는 것이다.

42. ‘매인 대로 풀어 주고, 사명대로 관리를 해 주어라.’ -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지, 선생이 연구해서 받은 말씀이 아니다.

43. 성경으로 써 놓으면 풀기 힘들다. 선생 외에는 못 푼다. 사람이 오해를 해도 처세와 환경과 대상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풀어야 된다.

44. 사명은 교역자, 부교역자, 교사, 조장, 팀장, 구장, 단장 각 분야대로 있다. 그 분야대로 얹혀 있고, 그 분야대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사명을 맡긴 대로 풀어 줘야 된다.

45. 선생은 성경을 배울 때 예수님께 물어봤다. “예수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찌 아느냐?”라고 기도했다. 몇 달씩 기도하고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도대체 답을 찾기가 힘들었다.

46. 예수님은 합당하니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길, “그 말은 이 말이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가지 않고는 못 푼다. 내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구체적인 것을 풀 수가 없다.” 하셨다. 그 시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이다.

47. 하나님은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푸는 자를 택했다. 한국말로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죽었다’는 말만 해도 ‘죽었다. 돌아가셨다. 별세했다. 콩 팔러 갔다. 거목이 쓰러졌다. 별이 떨어졌다. 운명했다. 밥숟갈 났다.’ 등 다양하다.

48. 성경은 그 시대로 가야 풀린다. 또한 그 나라의 풍속과 원본을 알고 배워야 된다. 원본은 원 골짜기로 가서 배워야 된다.

49. 성경 푸는 것은 원본 위치에서 푼다. 섭리사 최고 위치인 월명동 얘기를 많이 한다. 하나님의 전이요, 전체 핵심지이기 때문이다. 다른 데는 부속 건물에 불과하다. 또한 선생이 원본이다.

50. 사명대로 일을 맡겨서 사명대로 어려움이 오니 그것을 풀어 줘라.

51. ‘주’는 ‘주’로서 어려움이 온다. 모든 생명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주를 증거하는 자들도, 주를 따르는 자들도 전부 어려움이 있다. 이것들은 다 ‘주’를 통해 풀어 줘야 된다.

52. 관리하는 대로 만들어진단다.

53. ‘주’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다. ‘주’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항상 죄가 있다. 주를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도 돌아간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자기 중심 우상’이다.

54. 항상 하나님, 주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 주는 하

나님을 중심하도록 가르쳐 준다. 그러면 자기 책임을 면하게 된다.

55. 주도 주의 입장에서만 하고 끝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성령을 가르치고 증거하여 따르도록 애기를 해 주어야 된다.

56. 만드는 대로, 관리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관리’는 만드는 것이다.

57. 풀어 주는 대로 된다. 성경도 풀어 주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간다.

58. 성경을 풀어 주는 대로 영도 육도 행하게 되고 형성이 된다. 이상하게 된 영들은 성경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 풀어 준 대로 되었다. 제대로 만들려면 제대로 풀어 주고 제대로 행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59. 메시아 딱 하나면 그 시대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한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 항상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60. 일반 교회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전혀 상상도 못 하는 이론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신격화하면서 절대시하고 믿고 산다. 그 영혼들을 보면 사막의 땅, 신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다. 육신도 마찬가지로 헛갈려 왔다 갔다 한다.

61. 말씀을 풀어 주는 대로 형성이 된다. 이단들도 그 논리대로 형성되고 뜻을 이루고 한 족속이 되었다.

62.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니 생각, 사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생각을 잘못하면 스스로 헛갈리고 나중에 가서는 포기하게 된다.

63. 인간의 사고,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되게 형성되어 바로 알아버린다. 섭리사를 나간 사람들은 사고를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했다. 별의 별 이론을 붙이다 그 이론이 맞지 않으니 맞지 않는 세계로 가 버렸다.

64. <주>를 절대로 믿어라.

65. 주도 가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다. 배구 하다가 제대로 못 하면 아웃이 되기도 하고, 탁구하다 잘못되면 판 데로 아웃 되기도 한다. 그런데 배구 할 때나 축구 할 때 실수를 많이 했어도 결국 이겼으면 이긴 것으로 치는 것이다.

66.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보고 흠잡고 나가 버린 사람들은 배구 할 때 실수한 것을 보고 ‘메시아가 틀렸다. 주가 틀렸다. 졌다.’ 한 것과 같다. 그런데 결국 배구는 이겼다. 이긴 것으로 역사가 나간다.

67. 틀린 글씨를 보고 지적하며 원고가 틀렸다 하는 격이다. 그러나 틀린 글씨를 고쳐서 만회해 버리면 된다.

68. 관리는 ‘주’를 중심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령을 중심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자기를 중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짝이나 되는 듯이 관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육의 행위도, 영도 차원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일체가 안 된다.

69. 주를 중심하게 하여 주와 뛰고 달리게 해 주어라. 그러면 주는 항상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중심하게 풀어 주고 관리하면서 그 뜻을 실행하며 살게 해 주신다.

70. 글씨 틀린 것을 고치듯이 다 고쳐야 된다. 글씨는 틀린 것이 있어도 전체 내용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 시간을 들여서 교정하고, 교정하기 전에 보아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자꾸 만들어라.

71. 했어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같은 그림이라도 피카소가 그리면 천억도 되고, 2천억도 된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3천억도 되고, 4천억도 된다.

72. 똑같이 성경을 풀어도 메시아가 풀면 4천억, 4조씩도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풀어 봤자 400만 원, 40만 원, 혹은 4억 가치 정도로만 푼다.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께 결합시켜야 된다.

73. 세례요한이 말하길, “내 뒤에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하였다. 그래서 성령은 선생 옆에 항상 1m 안에서 따라다니신다. 성령을 보려면 육신을 통해 보아라. 성령은 메시아 옆에서 죽을 때까지 1m 안에 따라다니신다.

74. 선생이 한창 기도생활을 하며 깊은 단계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길, “네 옆에, 1m 안에 내가 따라다니마.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나를 챙겨라. 나를 불러라. 나에게 말하여라. 항상 속상한 일은 나에게 말해라. 내가 행하리라.” 하셨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첫날 새벽에 ‘구체적으로 풀어 줘라. 그리고 관리하라.’는 말씀의 근본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증거하는 자에게 증거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그 증거가 늘 나와 같이 일체 돼서 나가게 해 주시고, 또 주와 같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요한이 주와 떨어져서 증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같이 일체 돼서 다니면서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는 자는 모두 심정 일체 되고 마음도 일체 되고 생각도 일체 돼서 증거할 것이고. 그 증거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해 달라 하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저것을 증거해 달라 하면 저것을 증거해 주고. 그 터전 위에 오늘은 이런 말씀이 나가니 이런 말씀을 증거해 달라 하면 증거해 주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증거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대로 늘 행하고, 지금은 주가 나와서 일하니 주와 같이 증거하고 주와 같이 입을 모아서 행해야 될 때라 했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나와 같이 행하는 자는 어디 가든 형통케 해 주시고, 나와 같이 일체 된 자는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을 멸하노니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멸하게 늘 하늘 사자들을 보내 주시고, 미가엘 대군을 보내 주셔서 항상 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많은 생명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시대의 말씀을 증거해서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시대의 다른 걸로 안 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풀어 줘라. 그러면 그들이 온다.” 했습니다. “그냥 이 정도 방법도 좋지만, 말씀을 가서 증거해 주고 한번 해 보라. 그러면 그들이 말씀의 풀어짐을 받고 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뜻대로 관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잘되고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2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말씀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고, 풀어 주는 범위도 엄청나게 넓고, 답도 많기 때문이다.
2. 웬만하면 기록해야 된다. 선생의 특기는 ‘기록’이다. 하나님은 기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3. 선생은 천재 중의 천재이지만, 기록해서 천재가 된 것이다. 그냥 해서는 저녁 때 바로 잊어버린다. 영계에서 받은 말씀이라 바로 사라진다.
4. 천재들은 기록을 한다. 그러나 일반 천재들은 기록을 안 한다. 일반적인 천재들은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어도 그 후에 약아빠진 일들만 했지, 큰일을 못 했다.
5. 선생은 ‘실천 천재’다. 실천했기 때문에 천재가 되었다. 관념적인 천재들은 생각의 천재들이다. 선생은 생각하는 데도 천재지만, 기필코 행하는 실존적인 천재다.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뭘든지 남아 있다.
6. “너는 내 말을 기록하라.” -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였다. 그래서 선생은 항상 볼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녔다.
7. 나무가 다 타기 전에 또 나무를 넣어야, 끓던 것이 제대로 끓지 않겠느냐. 만사의 이치는 그 센터마다 동일하다. 그와 같이 그러하니라.
8. 새벽에 꿈에 보여 주셨다. 뭐가 한참 끓고 있는데, 보니까 끓는 것이 시원치 않았다. 아궁이를 열어 보니 나무가 마지막 한 개 남아서 타고 있었다. 막 뛰어가서 여기저기에 나무를 해서 자루에 담아 놓은 것을 꺼안았다.
9. 이 비유는 게으른 것을 말해 준다. <주>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선생도 그렇

게 뛰고 있는데도 게으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10. 그때 눈뜬 시간이 3시였다. 그때 안 일어나서 게으른 것으로 본 것이다. 정확하게 풀면 그렇다.

11. 나무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왜 나무를 가지고 가냐?”라고 했다. 그래서 “나무 주인이 내 제자다. 내가 갖고 간다고 하면 본인도 쫓아 나와서 갖다 줄 사람이다.” 하니 알았다고 하며 도와주었다. 그래서 통나무를 가지고 뛰어왔다.

12. 그와 같이 섭리 사람들 중 게으른 사람들이 있고, 나무가 다 됐는데 지금도 끓는 것만 중심하듯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13. 한 가지 계시로 그 세계와 그 주권권의 것들을 깨달아라. 계시 하나로 전체를 깨달아야 된다.

14. 누가 관리자에게 시험 들었다고 하면, 전체 가운데 그러한 세계가 많이 있으니 빨리 말씀을 줘서 해결하고 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15. 섭리 사람 하나로 인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 하나로 말씀을 전해서 전국 교회마다 관리할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했다.

16. 하기는 하는데 지혜 없이 한다. 지혜롭게 하라.

17. 지혜는 판단이지만, 잘하는 것이 지혜다. 잘못하면 지혜가 아니다.

18. 무지자와 지혜자의 차이는 ‘잘하고 못하는 것의 차이’다. 하기는 하는데 차이가 많다. 무지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지혜자는 차를 타고 간다. 가기는 가는데 늦게 가서 할 일을 못 하는 격이다.

19. 미련한 자는 성경을 풀어 주되, 맞지 않게 풀어 준다. 그러니 때가 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풀어 주니 때가 되어 그 뜻을 같이 행하며 이루신다.

20. <지혜로운 자>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 지혜롭게 풀어 주어 잘되게 해 준다. 그리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연구하며 해 준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풀어 주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 그로 인해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

21. 관리를 잘못하면 ‘귀한 그림’도 습기 차서 버린다.

22. 차도 췌덩어리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못 하면 ‘새 차’라도 몇 년 만에 바로 버린다. 관리를 잘해야 수십 년씩 새것같이 쓴다.

23. 일반 사람들은 10년 타면 차를 바꾸지만 선생의 차는 30년 되어도 관리를 그만큼 하니 지금도 잘 간다. 거의 새 차다. 그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돌아다니니, 모두 보고 “정말 보물이다.” 한다.

24. 이와 같이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된다. 사람도 동일하다.

25. 선생과 같은 시대 사람들은 벌써 고물이 되고 폐차가 되어 돌아다닌다. 그런데 선생은 아직도 이 시대에서 놀고 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그러하다. 그들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하다. 그들은 오히려 이런 엄청난 일을 안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도 관리를 안 했다.

26. 췌덩어리는 닦고 기름칠해야 된다. 자기 몸도 매일 씻으면 매일 씻고 닦고 단장해야 된다. 건강관리도 매일 하며 운동하고, 아픈 것은 고쳐 버려라. 음식도 건강하게 신경 써서 먹기다.

27.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해도 한 가지를 안 하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를 철학적으로 깨달아라. 이것을 다 했다고 해서 다른 것도 되는 일은 없다. 열 가지, 스무 가지를 전부 잘해야 그것들도 잘 돌아간다.
28. 시간이 없으니 이것도 저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시간이 되면 잔인할 정도로 잘라 버리고 끊어 버리고, 다른 못 한 것을 해야 된다.
29. 관리 못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관리를 못하면 물건도 잃어버리게 되고, 안 잃어버려도 폐하게 된다. 병들게 된다.
30.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만들어서 휴거까지 시켜 놓아도 관리를 못해서 영이 또 땅바닥에서 돌아다닌다. 이는 본인 책임이니 어쩔 수 없다. 관리를 못해서 휴거를 상실하고, 구원까지 상실하려고 한다.
31. 마치 그림을 그려서 줘는데 귀하게 관리를 못해서 습기 차서 번지고 버리는 격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32. 휴거도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 그 자리에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그 사람의 역사를 전체 다시 돌려야 되는데 이미 전성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휴거 전성기 때가 전성기였다.
33.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자기 관리와 전도도 부지런히 하여라. 한두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여라.
34. 어떤 자는 전도는 잘하는데 선생과 멀다. 전도는 잘하는데, 선생 관리를 안 해서 그렇다. 불붙었을 때 같이 해야 된다. 축구 할 때 해야지, 축구 다 끝나고 세리머니 하면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35. <자기 관리와 상대 관리>다. 자기도 풀고, 책임자도 풀어 줘야 한다. 자기만 푸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 상대도 풀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푸는 책임도 있다.
36. 나만 풀지 말고 상대도 풀어라. 하나님만 풀지 말고 본인들도 풀어라. 주만 풀어 주지 말고 너희들도 풀어라.
37. 어떤 것은 대화로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행하면서 풀어진단다. 대화로는 풀어지는데 행동을 안 하면 안 풀어진단다. 행동까지 해야 된다.
38. 말씀도 잘 전해 주고, 관리할 자를 잘 관리해 주고, 기도도 하고, 각종 할 일을 해 줘야 한다. 어떤 것은 잘했어도, 안 한 것은 그냥 남아 있다.
39. 삼위가 90% 잡아 줘도 자기가 10%를 안 하면 그 단계를 못 올라간다. 삼위가 잡아 주고 주가 잡아 줘도 본인이 안 하니 못 올라가는 것이다.
40. 매일 새벽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영’들을 보면 다른 데에 가 있다. ‘그 혼’들도 다른 데로 돌고, ‘그 육신’도 다른 데에서 논다. 그러면서 큰소리치고,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투덜대고 뒷말하고 나간 가라지와 비슷한 짓을 한다.
41. 신앙은 삶과 똑같다. 매일 밥 먹다가 한 끼 안 먹으면 서운하다. 두 끼 안 먹으면 배고프다. 세 끼를 안 먹으면 힘이 없다. 네 끼를 안 먹으면 설 것도 앉아 있고 싶다. 다섯 끼를 안 먹으면 허기져서 잠만 잔다. 그것이 천륜의 법칙이다.
42. 어떤 큰 자라도, 어떤 황소 같은 자라도 안 하면 바로 쓰러진다.
43. 말씀이 밥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44. 늘 기록해 놓고 착착 해 놔야 된다. 하나님도 모두 계획을 해 놓고 착착 해 나가신다.

45. 자기 희망이 '주'로 인해 안 이루어지면 갈등이요, 희망이 안 이루어지면 몸부림이다. 아무리 주가 왔어도 주로 인해서 자기 희망이 이루어져야 그렇게도 기뻐하고 좋아한다.

46. 할 것을 하여라. 주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해 준다. 양 떼와 소 떼를 부지런히 살펴라. 양 떼는 무리들, 소 떼는 일하는 사람들이다.

47.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 생활은 성령과 대화하는 생활이다. 꼭 해야 된다.” 얼버무리지 말고 꼭 해야 된다. 기어이 성령과 대화를 해야 된다.

48. 이것이 성령과의 대화인지,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물레방아 돌듯 도는 생각인지, 자기 인식으로 자꾸 하는 것인지 잘 모른다. 깊이 들어가면 확실히 알게 된다.

49. 성령은 “나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분별을 못 한다.” 하셨다. 본인이 말하면 본인의 욕신을 쓰고 얘기하신다. 그러다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령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자꾸 대화를 해야 된다.

50.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대화로 땅도, 하늘도 맺힌 것이 풀어지는 것이다.” 하셨다. 대화가 그리 크다.

51. 말의 능력이다. 대화의 능력이다. 사랑의 대화다. 이는 풀어지는 대화가 아니냐.

52. 기도를 잘해야 된다. 통하는 기도, 솔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가 잘하는 것이다.

53. 주가 와서 있는데도 주의 이름을 빼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 주가 와서 서 있는데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생각을 세우면, 주는 능력 부려서 바로 주저앉혀 버린다. 왕은 그 꼴을 못 본다. 바로 낙심하게 만들고 고꾸라지게 만든다.

54. 항상 성령 중심, 주님 중심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주관권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만물의 이치, 진리의 이치다. 주를 중심하지 않고는 주께로부터 바로 벗어난다. 성령 중심 안 하면 성령의 주관권을 벗어난다.

55. 항상 '주와 함께'다. 기도할 때도 '주와 함께'다. 자기 주관으로 하면 성령과 안 통한다. 올라가는 절대 법칙이 있다.

56. 하나님 앞에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올라와야 한다. 그래야 '영적인 자'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올라가면 사탄이 다 잡아먹는다. 곧 '육적인 자'다.

57. 성령께 올라가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올라가야 된다. 절대 법칙이다. <주>는 '문'이다.

58.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잘하는 방법을 알면서도 안 하고 못 하느냐. 주를 보면서도 못 하고 성령이 옆에 있어도 못 하느냐. 너희가 채울 것을 채워야 그제야 하나님도 같이 채우신다. 하나님만 채워도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채우기를 바란다.” 하셨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성부, 성자, 성령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행하고, 오늘도 직장으로 가고 생활지로 가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하되, 완벽하게 확인하고 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진정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전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 행하라고, 해가 될지라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지키되 끝까지 기다리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10년도 기다리고 지킨 자들이 지금 한 나절을 못 지키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좁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도 변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10년도 기다리고 했으니, 이제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축복해도 거기에 해당돼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주관 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를 떠나 사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연결돼서 살게 했으니, 그들이 가는 길을 다 막아 버려 주시고, 내가 메시아의 능력으로 막노니 모두 그 길이 막혀서

모두 절벽을 타듯 마치 늦 성벽을 손가락으로 뜯는 것같이 불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자들, 다 틀어 버려 주시고, 주가 능력과 권세를 부리노니 물이 피 되게 하노니, 모두 자기 길로 행치 말지어다. 영광과 존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이 모든 자들 다스리고 주관하고 풀어 주노니, 모두 그러함을 받을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2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풀어 줄 것들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 풀린 것은 풀어졌어도, 아직도 풀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섭리역사를 펴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해야 될 남은 역사가 있듯이, 풀 것을 풀면서 역사를 펴는 것이다.
2. 시험지를 풀듯이 문제를 풀고 해석해서 그것이 해결되었으면, 그로 인해서 답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대로 살고 생활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3. <관리>는 얻은 것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잘 사용하는 것이다. 사명대로 관리해 주고, 직책대로 관리해 주고, 그 형제, 모양대로, 갖춘 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4. 관리는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만드는 자는 건설 쪽, 창조 쪽이지만, 관리는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5. 분재나 꽃이나 나무의 경우는 물을 제대로 주었는지, 거름을 제대로 주었는지, 바람이 불어서 흔들림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6. 관리를 해 주면 살고, 관리를 못 해 주면 죽는다. 관리가 그렇게도 생명적인 역할을 한다.
7. ‘관리를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에 따라서 자기도 건강 면에서 좋고 나쁘고, 신앙적으로 좋고 나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보다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관리함으로 얼마나 더 빛나게, 더 좋게,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가 좌우된다.
8.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닦고 깎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통성 있게, 유용하게,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잘 쓰는 것도 관리다.
9. 그때그때 합당하게 쓰는 것, 이상적으로 쓰는 것, 더 발전적으로 쓰는 것, 더 요긴하게 쓰는 것, 더 귀한 곳에 쓰는 것이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10. 사람도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유통성 있게 쓰느냐, 가치 있는 데 쓰느냐, 그때마다 귀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그리도 크다.
11. 물건을 귀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조금 쓰기도 하고, 품으로 가지고만 있기도 한다.
12. 선생은 뭘 가지고 있으면 귀하게 많이 쓰는 편이다. 홀로 써서는 그만큼 유통하며 많이 쓰지 못한다. 여러 사람을 통해 많이 쓰면 많은 유익이 된다. 얻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얻고 자꾸 사용해야 한다.
13. 혈한 것을 샀어도 많이 쓰면 그 가치를 볼 때 비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선생이 쓰는 지혜이다.
14. 선생이 더 노력해서 얻기도 하지만 거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노력해서 얻어도 하나님 주관권에서 받기 때문에 그 힘, 그 생각, 그의 주심에 영향을 받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런 것을 볼 때 늘 많이 사용하거다.
15. “많이 사용하기.” -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 메시아의 정신이다.

16.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잘 모른다. 시대의 생명들을 쫓으니 생명들을 최대한 사용하여 주와 같이 행하게 만들어라.
17. 선생은 시간도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초창기 때는 불과 100여 명 놓고 주일 설교를 10시간씩 했다.
18. 그때 각종 종교를 풀어 주고 섭리의 말씀 가치를 풀어 주었다. 그중에 한 불교인이 말씀을 들었다. 불교의 최고 교리인 '미륵불이 다시 오는 것'과 '석가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도를 전했는지'를 풀어 주었다.
19. 석가는 황태자로서 왕궁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 보고 삶이 허무한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 결국 그대로 설산에 가서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며 다른 길을 찾았다. 혼계를 보고 착한 사람이 더 좋은 세상에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20. 그때는 예수님이 온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찾지 못했다. 고로 '인생은 무상하다. 선한 일을 한 자는 죽어서 극락에 간다.' 하는 도를 깨닫고 영적으로 깨우쳐 주게 되었다. 임금의 아들이 가르친 것이 훌륭하니, 그것으로부터 종교가 되었다.
21. 불교 속에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불교의 도는 "스스로 깨달는다. 선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극락으로 간다." 이다.
22. 37년 전 '태멘'이라는 소극장에서 그러한 설교를 했다. "미륵불이 다시 온다. '미'는 가다가 그칠 미(彌)다. 석가를 믿고 가다가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그친다는 것이다. '륵'은 새 길로 갈 륵(勒)이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길로 간다. '불'은 부처 불(佛)이다. 그가 부처가 되는 자다. 자신이 부처가 된다. 불교에서 하나님을 믿는 도의 말씀을 듣고 새 길로 오면 부처가 된다는 것이다.
23. 설명 공식은 만사가 똑같다. 진리는 공통성이니라.
24. 석가모니를 '다시 온다' 할 때 '미륵'이라고 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다시 온다' 는 것을 '재림주'라고 한다.
25. 재림주의 '재'는 '다시 재(再)'다. 예수님은 '초림 주'이지, '재림 주'는 아니다.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것이다. 제1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타난 예수이고, 제2예수는 제2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타난다.
26. 이스라엘 나라와 한국은 900여 가지가 닮았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믿으며, 풍습도 닮았다. 우리나라 전통 장례 문화 결혼문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것과 같다. 이 외에도 하나하나 치면 많다.
27.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호롱불과 촛불은 거둬들였다. 호롱불을 사용한 것은 기념으로 남길 뿐이다. 해 뜨는데 뭐 하러 등불을 사용하고, 전깃불을 사용하느냐? 그와 같이 섭리사는 새 길로 가는 역사이다.
28. 기독교는 "거듭나라. 새로운 세계가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아라." 하고 늘 말씀했다. 재림주가 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같이 가면 제2의 예수가 된다. 그리고 신부가 된다. 제1은 남자요, 제2는 같이 사는 여자이다.
29. 불교에서는 1980년대 초에 미륵불이 시골에서 나와서 서울 시내에 나타난다고 했다. 선생은 78년도에 섭리역사를 시작해서 80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며 돌아다녔다.
30. 그것을 풀어 주며 10시간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다. 한 사람을 특히 녹이려고 평소에 안 하던 불교 쪽의 설교를 한 것이다.
31. 배수빛 목사 어머니가 새로운 진리를 듣고 확 마음이 쏠리고 녹아져서 500만 원을 빌려 주어 40평짜리 영동 지하실을 얻게 되었다. 영동 지하에서 210명 전도해서 역사를 짝 펴 나갔다.

32.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 명 때문에 설교를 10시간 한 것이다. 그의 문제를 풀어 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하면 바로 미륵불이 된다고 가르치니, 전환해서 말씀을 듣고 통탄하며 깨달았다.
33. 이와 같이 풀어 주니 풀림을 받는 자가 와서 우리의 곤고한 문제, 교회를 얻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34. 자꾸 풀어 줘라. 그러면 그로 인해서 큰일을 할 수 있다.
35. ‘주’로서 ‘주’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교리를 풀어 주었다. 주는 땅에서 어떻게 오고, 어떤 처지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싹 풀어 주니 모두들 “틀림없는 역사다. 직강은 난생 처음 들어 봤다.” 했다.
36. 기독교는 그리 도와주지 않았지만 신기하게 이방 사람들, 특히 불교 쪽에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줬다.
37. 삼선교 건물도 불교인을 통해 사용하게 되었다. 불교인들이 제일 처음 장소를 빌려 주는 역사가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뒷받침을 안 해 주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 쪽, 제2의 종교들이 낫구나.’ 하고 그쪽을 통해 해결해 주셨다.
38. 우리가 조건을 세우고 계속 올라온 후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신전을 지어 놓고 우리가 사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통해 지어 놓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게 역사를 하셨다.
39. 미신 쪽, 불교 쪽에서도 많은 역할을 한다. 그들이 모르고 하는 일인데, 주가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 줘서 그런 것이다.
40. 귀하게 많이 써라.
41. 선생은 시간도 많이 쓰고 충분히 쓴다. 차도 실컷 탄다. 40년 동안 수천 명을 태웠다. 선생은 사용하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흑자가 10배, 20배 난다.
42. 사람들도 잘 관리하고 잘 풀어 줘서 많이 뛰게 해 준다. 선생은 몸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뛰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 놓았다. 1000년 동안 해도 못 할 일을 해 놓고 간다.
43. 사람이 1000년 동안 한다고 해서 휴거시킬 수 없다. 1000년 동안 한다고 해도 정확한 위치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을 수 없다. 성약의 주인만이 곳곳에 하나님의 전들을 만들어 놓고 시대의 젊은이들을 몰고 나간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듣고, 깨닫고, 잘되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들이 듣고 깨닫고, 또 풀어 줬으니 잘들 하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한 것처럼 뛰고 달리면서 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관리하니 하나님 뜻대로 행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오늘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이들이 하는 일을 사탄과 귀신들이 모두 막으나 싹 전멸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군을 보내서 한 명, 한 명 누가 손댈 때에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지켜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들이 아픈 것, 연약한 것 있으면 치료하는 광선을 더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건전한 생각과 정신을 갖게 해 주시고, 누구나 모두 이성들에게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치우치고, 성령과 일체 되게 해 주시고, 주와 일체 되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풀어 주고서 관리하여라. <풀어 준다>는 것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를 알아야 풀어 주지, 한 가지만 알아서는 못 푼다.
2. <육적 세계>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 한쪽 편만 풀어도 안 되고, 두 편을 풀어 줘야 된다. 육계에서도 항상 양면의 세계다. 풀어지는 것을 볼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한 가지를 풀면 반밖에 못 푼다.

3. 상대와 상대 중에서도 ‘주체와 대상’이다. 영적 세계에서도 주체와 대상, 하나님의 것과 자기 것을 풀어야 다 풀어진다. 혹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야 풀어진다.
4. 성경을 보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볼지라도 항상 두 가지의 세계가 겹쳐진다.
5. 성경은 육적으로도 풀고, 영적으로도 푼다. ‘볼’로 심판한다는 말씀도 있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씀도 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실제 볼로 심판을 받았고, 다른 곳들은 말씀으로 인한 신앙적 세계의 심판을 받았다.
6.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역사를 편다. <부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활이 있고, 기도해서 육신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7. 이 두 가지를 풀어 줘야 성경이 완전히 풀린다. 실제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말씀만으로 답이 된 것도 있다.
8. 항상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는데, 이 두 가지를 풀어야 근본적으로 풀어진다. 풀어지면 다음은 관리를 하면 된다.
9. 말로 풀어야 될 것도 있고, 행실로 풀어야 될 것도 있다.
10. 하나님의 상황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근본을 두고 푸는 것이다. 자기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풀어진다. 자기 입장,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해당되는 대로 풀어야 된다.
11. ‘알아야’ 풀어 준다. 모르는 자는 풀어 줄 수도 없고, 관리도 할 수 없다.
12. 성경도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역사를 못 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역사가 펴진다.
13. 두 가지를 함으로 해결된다. ‘영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있고, ‘육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있다. 성경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다.
14.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도 항상 두 가지로 해결돼야 근본으로 해결이 된다. <육적인 것>에는 ‘정신적인 것’과 ‘행실적인 것’이 있다.
15. <육적인 부활> 중에서도 꼭 죽은 자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육신이 살아났다고 한다. 또 육신의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정신적인 것이 살아나야 부활이 된다.
16. 정신이 살아나려면 ‘알아야’ 살아나는 것이 있고, ‘생각’을 해야 살아나는 것이 있다. 생각을 못 했을 때는 정신이 죽은 것이다. 정신이 작동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17. 세밀히 알아야 그 면이 살아난다. 알지 못한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다. 각 분야가 마찬가지이다.
18.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각 분야 전체가 알고 행하여서 실천했을 때, 각 회사의 분야 분야의 모든 것이 살아났다고 보는 것이다. 한 가지만 살아나서는 살아났다고 볼 수 없다.
19. 부활을 육적으로만 풀었던 기성은 특히 ‘예수님의 부활’만 두고 생각했는데 그 부활만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 모든 행실의 부활’을 의미한다.
20.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다.” - 이는 행실의 육적 부활, 육신의 삶의 부활이다.
21. 제대로 못 했을 때는 ‘죽은 신앙’이다. 제대로 알고 행할 때는 ‘살아 있는 신앙’이다. 이 모든 것은 종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똑같다.

22. 이 모든 것을 쪼개서 하나하나 세밀히 알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은 알지만 깊은 영적인 세계는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23.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전부 다 포함시키면 안 풀린다. 쪼개서 하나하나 각각 풀어야 문제가 풀린다.
24. 모든 것은 꼭 ‘알아야’ 한다. 알지 않고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어도 꼭 관리로 ‘행해야’ 된다.
25. 기성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훈 설교만 많이 한다. 그러나 그것만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설교를 다 해야 역사가 어디까지 온 지를 안다.
26. 모든 사건도 ‘원고인의 것’도 풀고, ‘피고인의 것’도 풀어야 된다. 한 가지만 풀면 해결이 안 된다.
27. 성경을 풀 때도 역사도 맞아야 되고, 성서의 내용도 맞아야 된다.
28. 크게 보면 구약말씀은 육적으로 해당되는 말씀, 신약말씀은 보다 영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고, 신약말씀은 보다 육적인 말씀, 성약말씀은 보다 영적인 말씀이다. 말귀를 여러 가지로 알아들어야 된다.
29. 신약은 자녀권 사랑, 자녀와 부모의 사랑, 보다 육적인 세계다. 보다 더 차원 높은 내적인 세계는 성약시대의 신랑과 신부 같은 사랑이다. 하늘 신랑과 땅의 신부로 역사가 간다. 보다 영적인 세계다.
30. 영적이라고 해서 영의 신령함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높은 차원을 ‘영적’이라고 한다.
31. ‘오는 자’는 영, ‘맞는 자’는 육이다. 예수님은 기다린 자에게 오셨다. 메시아는 영적 세계요, 맞이한 자는 육적 세계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적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육적 사람이다.
32. 가인 세계를 쪼개면 가인은 보다 육적인 자다. 육으로만 생각한다. 보다 아벨 같은 자는 보다 영적이고, 구체적인 근본의 뜻을 두고 행한다.
33. 육적인 자는 영적인 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해를 못 해서, 몰라서이고, 다르기 때문이다.
34. 구시대는 육적인 자요, 신시대는 영적인 자다. 구시대 사람들이 신시대를 못 받아들였다.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다르니 안 받아들였다.
35. 섭리의 세계도 그날그날 생활 역사 가운데 보면, 보다 육적인 자들은 보다 영적인 자가 하는 일을 못 받아들인다. 영적인 자는 보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고, 육적인 자들은 보다 땅에 속해서 하기 때문이다.
36. ‘주’는 영적인 세계다. 그러니 주가 가는 대로 가만히 놔 뒀라.
37. 가장 큰 것은 육적인 자들에게 ‘사탄이 개입한다.’는 것이다. 사탄은 영물이라도 보다 ‘육에 속한 존재’다.
38. 사탄이 안 와도 자기 자신이 육적이거나 가인적인 생각을 하거나 사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육에 속한 세계요, 육적인 자요, 혹은 육신 쓴 사탄, 인(人)사탄이 된다.
39. 근본을 모르면 답을 못 한다. 선생은 근본을 알고 항상 세밀하게 성서를 푼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권세가 있고, 세력 있는 말씀, 합당한 말씀이다.” 했다.
40. 풀어 주지 않으면 역사를 못 편다. 그런데 신약은 모르니 풀어지는 역사를 못 편다. 그런데 알고 보면 백지장 차이

다. 그것을 몰라서 역사를 못 펴고, 새로운 역사로 오고 싶어도 못 온다.

41. 새로운 역사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때 풀어진다. 그제야 시작하는 것이다.

42. 모르는 자가 성공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백지장 차이다. 이는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43. 선생이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안 만큼 풀어 주는 시대가 왔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도 알아서, 행하고 풀어 주고 왔다. 하루 이틀에 푼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두고 풀고, 한 시대를 두고 일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40년이 걸렸다.

44. 오늘도 자기 문제 풀기, 그리고 관리하기다.

45. 사람이 모를 때는 뭘 모르는지 알 수가 없다.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언제 왔는지 모른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00년이 다 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

46.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이 왜 안 오시지?’ 하며 매일 기다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와서 2000년 동안 역사를 펴는데도 모른다. 그 뜻을 받아 지금 41년째 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정말 모른다.

47. 아는 사람이 이익을 본다. 모르는 사람은 손해가 가도 전혀 모른다.

48. 주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상황을 모른다. 주는 두 가지를 안다. ‘주’는 ‘주’기 때문에 주에게는 100% 고백한다. 주가 아닌 형제들에게는 100%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백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의지다.

49. 주는 주(主)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속 이야기를 해서 안다. 주(主) 아닌 자에게는 속 이야기를 안 한다.

50. ‘주’는 안다. 그러나 주를 제대로 몰라보면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놔둔다.

51. 주가 아닌 자는 소경들이다. 안 배운 사람은 시대 소경들이다. 소경은 어느 정도로 못 보시고 하니, 바닷가에서 모래 하나도 못 본다.

52. 하나님은 “소경들은 바닷가의 모래 하나를 못 보고 죽는 격이다.” 하셨다. 한 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안다고 해도 자기 주관으로 안다. 소경들은 소경으로 평생 있다가 간다.

53. 기독교는 한 건도 모른다. 기독교에 다니면서 태양이 멈췄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주가 40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이다.

54. 저 기성에서 ‘이단이니까 이단을 연구한다.’ 하며 와서 배우고 보니, “성경에서 태양이 멈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태양이 안 멈춘 것이 맞았다.” 한다.

55. 기독교가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며 예전과 다르게 풀어 준다면, 그것은 선생이 가르친 것으로 푸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안 듣고는 알 수가 없다.

56. 소경이 눈을 감았는데도 아는 것은 눈 뜬 사람이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확실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57. 기독교도 선생이 가르쳐 준 것을 배우고 간 사람들이 가르쳤다. 그러나 같은 것을 배우더라도 새로운 역사의 사람은 못 된다. 새로운 시대 사람이 되려면 다 배우고 아예 여기서 살아야 된다.

58. 기독교 목사들은 상식이라도 한 건을 모른다. ‘말세 때는 해가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도 절대로 떨어진다고 믿는다.
59. ‘해가 빛을 내지 못한다.’ 이는 두 가지로 풀 수 있다. 하나님이 일식(日蝕) 때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두고 예언하신 것도 있고, 영적으로 볼 때 주권이 바뀌어서 기존의 지도자가 때가 되어 사라진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도 있다.
60. 프랑스에 있을 때 “말세 때 해가 어두워진다.” 하더니 정말 1999년도에 해가 어두워지고 일식이 일어났다.
61.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바뀌어서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면서 구약의 지도자인 모세의 해가 졌다는 것이다. 신약의 역사에서 성약의 역사가 오면 신약의 해가 진다. 하나님이 보다 성약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62. 사람을 ‘별’이라고도 하고, ‘달’이라고도 한다. 신부들을 ‘달’이라고 하고, 아내를 ‘달’이라고 하고, 애인을 ‘달’이라고도 한다. 성경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푸는 것이다.
63. 주께 늘 배워라. 주가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상도 못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듣는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64.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하면 알게 된다. 그러나 사명자가 아니면 모른다.
65. 우리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주인들이니 아는 것이지, 주인이 아닌 다른 세계는 전혀 모른다.
66. ‘세상에 정도령이 온다.’ 는 것도 주인만이 안다.
67. ‘도령’은 결혼 안 하고 도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또한 ‘도(道)’는 새로운 진리를 의미한다. 이를 기독교에서는 ‘재림주’라고 하는 것이다.
68. 예수님이 “메시아를 무엇으로 보느냐?”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것을 풀어 주는 자를 메시아로 본다.” 했다. 고로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그로다.” 했다.
69.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 하면서 개인의 사랑 문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문제까지 다 풀어줘 버렸다.
70.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의 주인공은 <메시아>다. “메시아와 같이 예배하라.” 는 것이다.
71. 섭리역사에서도 주와 같이 하지 않으면 사탄이 다 채어 가 버린다. 영계를 못 보면 모른다.
72. 주는 하나님께 사명자로 약속되어 있다. ‘눈 뜨고 보는 자’를 따라서 가야 된다. 절벽 길을 눈 감고 가는데 얼마까지 갈 수 있겠느냐? 바로 떨어진다.
73. 아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주가 없으면 말씀을 하나도 못 듣는다.
74. 만왕의 왕은 급하다고 뛰지 않는다. 비행기를 못 타면 일반 사람이야 뛰지만, 대통령은 자기 비행기가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75. 주는 영계 이야기, 천국에 대해 끝없이 풀어 줄 수 있다. 천국은 크게 나누면 <낙원 천국>과 <천상 천국>, 그리고 <황금 천국> 세 가지가 있다.

76. 예수님 때는 “네가 오늘 죽으면 나와 같이 낙원에 가리라.” 했다.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하던 자들은 ‘낙원급’이다. 낙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고 엄청나지 않다.

77. <천상 천국급>은 집을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는데,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엄청나지는 않았다. 새 시대가 왔어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정도, 그 신앙 급의 대상 급이다. 행위대로 되기 때문이다.

78. <황금 천국급>은 완전한 애인급의 세계다. 완전히 다른 세계다.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꾸며 놓아 찬란하고 어마어마하다. 집 한 채가 한 나라보다 더 크다. 문 한 짝 지나가려면 차 타고 한참을 지나가야 한다.

79.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크면 어떻게 사용하지?’ 하지만, 영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지 않다. 영은 빛으로 가면 150억 광년 걸리는 거리를 금방 간다.

80. 마치 차가 없을 때는 자기가 걸어서 다니는 범위가 짧으나, 차가 나왔을 때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격이다.

81. 영적 세계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예쁘고 적당히 큼직한 크기이지만, 직접 가 보면 지구보다 상상도 못 하게 크다. 그와 같이 천국에서도 멀리서 보면 적당한 ‘나무’로 보이지만, 가 보면 둘레가 1000m, 혹은 3000m 까지도 크다.

82. 태양이 멀리서 잘 보이고 별이 멀리서 잘 보이듯이, 천국 안에서도 멀리서도 서로 보이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조와 거리와 여건을 창조해 놓으셨다.

83. 영적 세계는 다 크다. 자기 영은 육신보다 훨씬 크다. 보통 영들은 2m에서 3m 정도 된다.

84. 꿈에 보이는 것들이 영들이고, 혼들이다. 육보다 훨씬 크게 보인다. 꿈 영계만 봐도 영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다.

85. 꿈에 보이는 것은 대개 혼의 세계를 보는 것이다. 영의 세계를 보려면 보다 높은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86. 혼체는 무용지물같이, 어떤 빛같이 생기지 않았다. 실체가 만져진다. 육신이 살과 뼈가 있듯이 영도 다 있다.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있다. 영체가 육체보다 더 부드럽다.

87. 별에 대한 것도 지구상에서 아무리 연구해 봤자 주(主)만큼 못 한다. 영이 직접 가서 보고 오면 되기 때문이다. 미국 과학자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해 봐도 모른다고 한다. 주는 영으로 뒤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끝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관리할 수 있고, 알아야 풀어 주는데, 안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밖에 몰라요. 나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또 풀어 줘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풀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모두 육적으로도 풀고, 영적으로도 풀고, 두 가지로 푼다. 모든 존재 세계는 두 가지로 풀어져야 완전히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의 논리를 깨닫고 인생을 산다면 다릅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배우질 않습니다.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떤 세계도 하나님의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는 다 인생 논리가 들어 있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풀어 주면, 풀면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못 풀어서 못 얻고, 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옵소서. “내가 너와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왜?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어서, 너는 내 말을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했습니다. 항상 그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무시 버리고, 자기 주관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와 접붙이지 않은 자들은, 그 생각, 마음 접붙이지 않은 자들은 돌감나무요, 돌포도나무라. 가인이요,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시대에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보다 사망권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약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는 사망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보낸 새 시대 사람을 몰라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몰라본 자는 보다 사망권에 있었어요. 이 시대도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새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오지 않은 자는 사망권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정말로 사망권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몰라요. 우리들은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대 뜻을 펴 나가서, 천국도 황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말 잘 들으면,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형제같이 지낼 사람이 애인같이 지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들은 그냥 형제로 살다가 끝내고, 아무리 애인 시대가 왔어도 모르면 그러하다 했습니다. “모두 감격하고 깨닫고 고마워하며 사는 이들이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요,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그냥 형제급에서 살게 놔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늘 들어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구세주가 기도할 것은 구세주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해야 합니다. 애인이 부탁할 때는 들어주지만, 애인이 아니면 절대 허락을 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구세주가 풀어 주지 않고서는 못 풀어 줍니다. 풀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대의 많은 것을 나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배우고자 하지 않으니 안 가르쳐 줍니다. 고로 사망에 처한 영박에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권에 처하려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은 생명이니 들어라. 그중에는 죽음도 들어 있고 삶도 들어 있다. 사는 방법도 있고, 죽는 방법도 있어. 너희들은 방법을 몰라서 사망권에 처해. 육신도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이다. 우리 민족도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옛날에 꼭 정치인이 해결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국가 문제를 풀어 줬고, 사사들 통해서 국가 문제도 풀어 줬고, 메시아 때는 메시아를 통해서 국가 문제를 풀어 주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그 시대 급대로 다 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오늘도 영원하고 영원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령님을 알고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늘 나와 이야기하고 말씀하자.” 했으니, 그러함을 받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영성 캠프, 가르치는 기간에 가르쳐서 튼튼하고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하게 하겠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자들이 알고 행하여서 얻게 해 주시고, 모든 죄들은 회개해서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이다. 아멘.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풀어 주고서 관리를 해야 된다. 풀어 주고 관리다. - 이 한마디 말씀을 풀어서 각 방향을 깨우쳐 주려면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해 주어야 겨우 안다.
2. <모든 인생의 답>은 자기가 행하는 데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라는 말씀을 하신다. 행해야 답이 온다. 자꾸 행해라.
3. “하나님을 공경하라, 섬겨라, 사랑하라.” 하면 이유를 얘기할 필요 없이, 왜 그래야 하는지는 행하면서 안다. 문제를 접하면서 답이 온다. 그러니 늘 기도하면서 행해라.
4. 하나님이 바쁘셔서 한 마디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어째서 그러한지는 행할 때 그 과정을 통해 안다.
5. 항상 성서의 깊은 말씀이나 인생의 답을 얻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행하면 저것이 생각난다.
6. 월명동 돌을 쌓을 때도 “이 돌을 쌓고 다음에 무엇을 쌓을까요?”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쌓아라.”라고만 하셨다. 이것을 쌓고 다음에는 저것을 쌓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다.
7. 두 개 중에 하나를 쌓으라고 해서 쌓았다. 하나를 쌓는 동안 다른 것을 묶어야 하니, “다음에는 무엇을 쌓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으셨다. 그런데 하나를 다 쌓고 보니 “다음에는 저것을 쌓으면 되겠다.” 하고 생각이 났다.
8. 월명동의 돌을 쌓는 것을 볼지라도 행해야 그다음 것의 답이 왔다.
9.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있기도 하다. 그럴지라도 또 해야 된다. 이리도 맞춰 보고 저리도 맞춰 보고 해야 된다.
10. 어떤 것이 안 맞을 때는 요리조리 맞춰 보며 맞춘다. 어린아이의 지능을 발달시킬 때 여러 가지를 갖다 맞춰 보게 한다.

11. 더 좋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사람의 마음도 안 맞으면 틀어 버리는데, 명령조로 지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며 여러 가지로 해 보면 맞는 것이 있다.
12. 그렇게 맞춰서 그 순간을 디딤돌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디딤돌을 또 만들어 올라간다.
13. 계단을 만들 때도 무섭게 안 만든다. 밑에 하나 놓고, 동쪽으로 틀어 놓은 대로 다음 돌도 동쪽으로 틀어서 놓는 것과 같다. 서쪽으로 틀어 놓으면 다리가 벌어져서 못 올라간다.
14. 마음 맞추는 것도 그렇게 맞춘다. 행해야 다음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거나 말씀해도 빨리 받아들여진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다.
15. 하나님이 어떤 큰 것을 계시할 때는 이해를 못 하니 그 전 단계를 겪게 만들고 인식을 넣어 주신다.
16. 선생에게 시대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맡길 때 선생이 인식을 못 하고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 기다리는 처지였다.
17. 답을 들어도 이해를 못 하니 그동안 선생에게 어떻게 전초를 해 주셨는지 가만히 분석해 보았다. 선생은 “내가 고통에 빠져 있으니 나를 구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듯 나도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다.
18. 일반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구원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했다. 그런 기도를 함으로 선생이 먼저 인식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줘도 선생이 원해서 준 격이 되었다.
19. 자기가 원하고 바란 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러나 바라지 않은 것을 주면 깨달을 때까지는 기뻐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것을 줘도 그저 맡겼으니 한다고만 생각한다.
20. 행해야 다음 답을 얻게 된다.
21. 사랑으로 성경도, 생활도, 문제도 풀고 사랑으로 관리도 해야 하느니라.
22. 하나님은 귀한 것을 전달할 때는 먼저 겪게 하고, 자기가 시인하게 하신다. 먼저는 겪은 그릇이 돼 있어야 한다.
23. 자기는 인생의 그릇과 같다. 그릇에 물을 담아 본 것과 밥을 담아 본 것과 국을 담아 본 것과 사과를 담아 본 것은 다르다. 해 본 사람은 안다.
24. 주가 시대의 말씀을 줘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릇대로 받아들인다.
25. 천지 창조 목적이 사랑이라, 사랑 외에는 모든 길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느니라.
26. 열차 타고 갈 길인데 걸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걸어가다 인생의 해가 넘어간다. 늦더라도 열차를 만들어서 타고 가야 일찍 도착해서 다른 것을 많이 할 수 있다.
27. 늦어도 만들어서 가야 된다. 늦어도 성경을 제대로 풀고 가야 된다.
28. 선생은 “인생 100년을 산다면 90년 동안 성경을 풀고 10년을 행하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다. 제대로 알고 행하겠다고 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다.” 말씀하셨다.
29.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자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만큼 충분히 배우고 나머지 시간을 가르치겠습니다.” 했다.

30. 그 말대로 오랫동안 성서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배웠다. 다 배웠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많지 않았지만, 그 기간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많은 생명들이 왔다.

31. 40년 역사를 보면 섭리를 진짜 된 기간은 얼마 안 됐다. 약 3년 가까이 1명에서 2명을 전도했고, 거의 10년이 될 때까지도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 후부터는 월명동 땅을 사고 개발하는 데 약 15년 이상이 들어갔다. 그래서 25년 동안은 거의 공적 시간이라 하고, 나머지 15년 동안은 월명동 개발하는 데 썼다. 그러다 보니 40년이 된 것이다.

32. 짧은 시간을 뛰었어도 제대로 알고 뛰어서 시대를 이렇게 하나님의 현실로 만들어 놓았다.

33. 왜 사랑으로 풀고 사랑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사랑이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답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34.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성경도 사랑으로 풀어야 풀리지, 다른 것으로는 안 풀린다. 성경은 전부 사랑으로 인봉되어 있고, 사랑으로 답이 되게 되어 있다.

35. 관리도 사랑해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사랑치 않으면 관리가 안 된다. 식물도, 어떤 분재도, 어떤 꽃 화분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관리해야 된다.

36. 회사나 호텔이나 교회를 보면 화장실은 필요할 때만 가는 코스지만, 로비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누구나 거치는 곳이다. 그래서 다들 좋다고 하는 식물 화분을 놔는데, 관리를 안 해서 비쩍비쩍 말라비틀어져 간다.

37. 선생이 “물 안 줘서 이렇게 비쩍비쩍 마르고 있는데 안 보이냐?” 하니, 안 보인다고 했다. 이는 사랑을 안 해서 그렇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관리를 한다.

38. “계속 그러면 로비에 꾸며 놓은 것을 하나씩 철수하겠다.” 했다. - 이는 선생이 한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39. 이 말을 ‘선생’이 한 말로, ‘주’로서 한 말로만 들어도 겁이 나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라 봐줄 수 없다. 본인은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못 한다.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다. 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못 만나기 때문이다.

40. 성경을 사랑으로 풀어서 풀렸다.

41. 가인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로 안 풀면 안 풀린다. 가인은 제물만 좋은 것으로 갖다 바치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는데 가인은 미워했다. 하나님은 제물이 더러워서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다.

42. 기독교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은 것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양으로 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처럼 양을 드렸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인이 소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안 받았을 것이다.

43.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사랑해야 가인도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랑치 않아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이다.

44. 이것으로 성경을 푼다면,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아벨이 ‘제사장’이 되고 본인은 ‘사회를 보는 자’가 되어야 했다.

45. 제사 지낼 때 가인이 사회를 보고, 아벨은 말씀을 전하며 나갔으면 하나님이 100% 받으셨을 것이다. 가인이 아벨

을 사랑했으면 그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벨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제물을 안 받은 것이다.

46.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선생이 세웠거나, 선생이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안 하면 받아 주지 않는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

47. 메시아 위신이 있고, 메시아 프라이드가 있다. 그 프라이드는 지구상에서 제일 높다. 계급도 안 통한다. 그 누구라도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지 않으신다.

48. 주가 아니면 구원 길이 없다. 신약의 아들 길은 있지만, 이 시대 구원 길은 없다. 주는 이 시대 천 년 주권을 딱 잡고 있다. 사명자의 사명은 육신이 죽어도 상관없다. 예수님은 육신이 죽었어도 신약역사 주권을 다 통치하신다.

49. 아벨에게도 주권이 있고, 세력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고, 프라이드가 있다. 그런데 대개 아벨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선생이 눈치를 줘도 하는 사람은 하고, 못 하는 사람은 못 한다.

50.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다. 그러나 막상 마지막 사명을 ‘메시아냐,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성자냐’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칼에 죽는다.

51. 마지막까지 버틸 때, 자기의 원래 사명을 가지고 할 때는 그 사명으로 죽는다.

52. 메시아의 마음에 둔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다. 표시를 해 놔서 그와 둘이만 동행하기 때문이다.

53. 성경을 사랑으로 푸니 마지막 휴거의 역사가 풀렸다. 하나님 최고의 목적, 천지 창조의 근본 목적인 휴거가 풀렸다.

54. 신약에서도 했다. 왜? 휴거는 안 시켜도 나름대로 신약시대 급의 뜻과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55.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 그 속에 다 들어 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라. 사랑으로 물건도 대하라. 그러면 아낀다. 미워하면 버린다.

56. 가령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마음에 안 든다 하자. 미운 것은 아닌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고서도 안 찬다. 마음에 드는 다른 것을 찬다. 그래서 사랑하면 좋아서 계속 차고 다니는 것이다.

57. 사랑해야, 사랑으로 풀어 나간다.

58. 모든 사람의 관계부터 비롯해서 남북한 관계도 사랑으로 풀어 나간다. 학교 학문도 사랑해야 잘 풀지, 학문을 미워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버려 버린다.

59.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60.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보면, 사랑해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만물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만물을 미워하면 이상하니 화가 생긴다. 사랑으로 창조한 것을 다른 것으로 대하니 화가 생긴다.

61.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보냈는데 주를 미워하니 모두 화가 생겼다. 주의 심정이 상하니 화를 받고서 지옥까지 가 있는 사람도 있다. 화를 너무 무섭게 받았다.

62. 하나님 앞에는 말을 조심히 잘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만 잘해서도 안 된다. 자기 근본에 생활화가 되어 하는 말이 진실로 들린다.

63. 하나님 앞에 어떤 자를 두고 혼내 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더 혼낼 수 없다.” 하셨다. 선생은 행한 대로 복을

주고, 갚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만 혼내면 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옥 이상으로 더 이상 벌을 줄 길이 없다는 말이었다.

64. 옥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온 자가 있었다.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 선에서만 끝내지 말고 쫓아가서 사연을 얘기하며 전화도 해 주고 대화도 했어야 했다. 법은 개인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사고 당한 본인이 걸면 해결이 안 된다.

65.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고 사랑으로 풀어 줘야 된다. 보험 처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난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풀어 줘야 한다.

66. 모두가 행할 것은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풀어 줘야 덜 한다. 관리도 항상 사랑해야 관리가 된다.

67. 월명동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몸 자체와 같다. 선생은 월명동을 하나님의 몸으로 보고 ‘하나님 때 밀어 준다. 하나님 발 씻겨 준다.’ 하고, “여기에 하나님 목걸이 해 주면 좋겠다. 여기 소나무를 심으면 하나님께 목걸이를 해 준 격이다.” 하면서 계속 개발해 왔다. 그 차원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68. 나중에는 월명동이 하나님의 몸으로, 큰 사람으로 보였다. 뒷동산이 머리로 보이고, 앞산과 청기와 쪽에 양쪽 팔이 보이고, 몸은 회골 쪽으로 등뼈부터 보인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이해하고 깨닫게 전해 줬으니, 이것은 이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 주간을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성경을 못 푼 사람은 사랑으로 안 풀어서 못 풀었고, 생활도 제대로 안 풀어진 것은 사랑으로 안 풀어서 안 풀렸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모두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과 말씀을 들은 한국을 중심한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충만하고, 섭리의 사람들에게, 민족과 세계까지 은혜와 사랑이 더욱 충만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풀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도 하루가 진행되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고, 모두 사랑으로 풀어지고, 그리고 관리를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그러함을 받을지어다. 삼위의 큰 능력 가운데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2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풀어 주면서 관리하자.’에 대한 마지막 말씀 - 땅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풀어 주며 해야 할 것은 하늘의 상황이다.

2.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늘 앞에는 풀어 주는 일이요, 관리를 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 주는 일,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도리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풀어 주는 일이다.

3. 성서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때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자가 상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 준다.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고, 부모의 상한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 때가 오리라.’ 했다.

4. 성서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사람들만 마음이 상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문제가 생겼다.

5.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펴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행치 않으셨다.

6.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풀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7. 하늘과 땅의 문제, 두 가지를 풀어야 된다.

8. 사람끼리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 성서의 말씀도 사람이 풀어야 될 문제들이다. 시대의 문제들 중에도 사람이 풀어

야 될 문제들이 있다.

9. 성서에 의해 볼지라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어지지 않는다. 먼저는 육 있는 자들의 일이고, 다음은 신령한 자들의 일인데, 먼저 육 있는 자들의 것을 먼저 풀고, 또 하늘에 있는 것도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

10.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땅의 것을 풀어도 다 푼 것이 아니다. 자기 문제와 상대 문제, 두 가지를 풀어야 하듯이 땅의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도 반드시 풀어야 할지니, 절대적인 두 가지 뜻을 성서에서도 말씀했다.

11.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을 향한 각종 것들이 많이 있다. 저마다 모두 다르다. 시대로 볼 때 뜻은 한 덩어리로 있으나 각자 풀어야 될 것들이 많다.

12. 섭리를 펴 가는 데 있어서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깨닫게 한다면, 주를 세워 놓고 각종의 것들이 각각 풀어졌을지라도 주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으면 그와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13. 꼭 주와 같이 일을 하려면 주의 마음과 같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14. 땅에서도 풀고, 하늘을 상징하는 주와도 풀어야 다 풀려서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땅의 것도 다 풀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풀어서 행해야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

15. 항상 하늘의 것을 잊지 말고 행하라. 하늘 것만 풀리고 땅의 것이 안 풀리면 안 되고, 육적으로도 풀리고 영적으로도 풀려야 된다.

16. 상대성의 세계는 하나의 공식이다. 모음과 자음이 합해져서 한 글씨가 된다. 이와 같이 두 가지가 다 돼야 한다. 듣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

17. 성서에 의해 본다면, 항상 뜻대로 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거슬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섬기지 않고 사랑치 않고 알아주지 않고 믿어 주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되었다.

18.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왔을 때, 그를 믿고 사랑하고 말씀을 들어 주고 같이 행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진노의 마음으로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을 대하셨다.

19. 결국 십자가로 뜻을 이루어 용서도 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라앉히시어 다음 시대를 펼 수 있었다.

20.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어 주지 않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이유를 달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격동케 한 것이 성서에 나와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대한 것을 풀어 주지 못한 일들이다.

21. 그 외에도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따르다가도 자기를 중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 버리고, 하나님과 의논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달고, 각종으로 순종치 않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보낸 자와 함께 분노하신다.

22. 하나님이 보낸 자가 표상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線)이다. 그가 가는 데까지가 선이고, 그가 서 있는 데까지가 한 계선이다. 그것을 표준으로 늘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용서의 한계도 본다.

23. 주가 여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자가 그 정도까지 하니 다른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는 봐주신다. 그러나 여기서 더 가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싫어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24. “내가 그러하였으니 너도 그러하고, 나와 같이 모으고 나와 같이 헤치자.” 하시며, 하나님은 보낸 자와 같이 헤치고 모으고 행하시고, 잘못도 보낸 자가 한 데까지는 봐주겠다는 것이다.
25. 임금의 자녀가 법에 걸려 죽게 생겼으면 그 법까지는 용납해 준다. 그러면 백성들도 그 선까지는 봐준다. 그러나 그 선을 벗어날 때는 말을 하게 된다.
26. 시대 법을 볼 때, 이제 신부의 법의 시대다. 애인의 법이라 애인의 선에서 본다. 자녀 시대 때는 한계를 자녀의 선에서 봤다.
27. 옛 시대, 자녀권 시대의 법에 순종했던 자일지라도 지금의 새 시대 법에 순종하고 다 감당할 수는 없다. 형제 법과 신부 법은 완전히 다르다.
28. 신부는 신부만큼 대해 주고 또 신부만큼 대함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도, 주도 그러하다. 이미 창조 목적에 의해서 사랑의 뜻을 가지고 이상을 이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9.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 목적이 두 가지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한 대로 하나는 땅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목적을 이룬다.
30.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야 땅도 사랑해서 풀어지고 하나님도 사랑해서 풀어진단다.
31. 선생이 하나님을 모셔 보고 사랑해 봤지만, 항상 땅도 사랑하고 하늘도 사랑해야 된다.
32. 가정의 남편들은 두 가지를 풀어 줘야 사랑에 성공한 것이다. 자녀도 사랑하고 부인도 사랑하기, 두 가지를 해야 사랑이 풀린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시대 신부들도 사랑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 주는 것이다.
33. 사랑 세계의 계획 속에 두 가지 투자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풀어 주는 사랑을 하는 것이다.
34. 사랑으로 풀어 주기다. 사랑 때문에 천지 창조를 하였으니 사랑으로 풀어 주어라. 그리고 꼭 풀어 주는 일을 땅과 하늘, 두 가지로 하라.
35. 성서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불평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분노하신 것은 사랑 때문이다. 다른 것을 못했어도 결국 사랑을 잘했으면 그렇게 안 하셨을 것이었다. 사랑이 깨지고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36. 우리가 못해도 핵심은 꼭 해야 된다. 세례요한이 증거를 안 할지라도 주는 증거를 해서 핵을 이뤘다. 핵을 하면 “됐다.” 한다.
37. 증거자들이 증거를 안 해도, 주가 했으면 아쉬울지라도 “됐다.” 한다. 그러나 주가 하지 않았을 때에는 증거자가 증거를 했어도 “됐다.” 소리를 안 한다.
38.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은 마치 사랑을 주는 것과 똑같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도 큰 것이다.
39. 증거의 전초가 없으면, 선생의 말씀에 전초를 같이 섞어서 주를 증거하며 한다. 그러나 만일 증거가 잘되면 바로 그 증거에 이어서 말씀한다.
40. 늘 풀어 주는 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을 풀어 줘야 된다.

41.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아야 될 것은 늘 사랑이다.

42. 결국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투덜거리시고, 화도 내시고, 분노도 하시고, 아쉬움을 가지시고,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빛도 달라지신다. 핵심은 사랑이다.

43.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토닥거리고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언성도 높이는 것은 가짓수가 많지만, 결국 핵은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연고로 그렇게 나간다. 고로 사랑이 근본이다.

44. 성서 역사에서 보면 마치 방축이 터진 것처럼, 골반 쪽의 등뼈가 터져서 디스크가 된 것처럼, 이러한 사랑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터져 버려서 정상이 안 되고 힘을 못 썼다.

45.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성약시대 때나 역시 사랑 문제다. 사랑 문제를 하나님도 가장 크게 보시고, 사탄도 크게 보고, 사람들도 크게 봐야 된다.

46. 정치의 세계도 역시 이것저것 여건 따라서 다르고, 말이 다르고, 대함도 다른데, 결국은 사랑이다.

47. 전쟁까지도 결국 사랑 문제다. 사랑으로 풀고 사랑으로 해야 거기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결국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운명을 좌우시키신다.

48. 종교 세계 역시 사랑의 세계다. 교리가 다르다 하고 뭐가 다르다 하지만, 역시 사랑이 빛나가서 그러하다.

49. 성경도 사랑으로 풀어야 되는데 사랑을 빼놓고 푸니 제대로 못 풀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으면 그렇게 풀도록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으셨다.

50. 선생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보고 내가 네게 말씀을 준다.” 하는 것을 늘 깨우쳐 주셨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준다.” 하기 이전에 더 큰 것은 “나를 너무 사랑하니, 네가 늘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이다.

51. 선생도 사랑하니 “그러면 가자. 좁지만 내가 가면 길이 생긴다. 그때 따라오면 앓을 데가 생긴다.” 한다.

52. 어느 때는 “사랑하니 모임에 간다.” 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사랑의 시동이 가장 강하게 걸린다.

53. 사랑이 가는 곳에 강력한 시동, 강력한 움직임, 강력한 감동이 생긴다. 자기의 터전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거나, 혹은 자기의 권한을 보이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사랑하니 간다.’는 것이다.

54. 늘 성경을 풀어서 생각하며 가야 하나님의 뜻이 퍼진다.

55.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해서 갔다.” 고 하든지 “그들이 너무 무시해서 가르쳐 주러 갔다.” 고 하든지 다 합당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펴고 성서에 말씀한 것을 이뤄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해서 간 것’이 제일 크다. 그래야 성서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56. ‘자기를 무시해서 가르쳐 주러 갔다.’는 것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 크다. 그러나 “사랑해서 갔다.” 할 때는 하나님도 사랑해서 가게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랑해서 가면 하나님도 사랑해서 가게 되는 입장이다.

57.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면 답이 시원찮다. “사랑해서 갔다.” 하는 말이 더 핵이다.

58. 하나님의 세계를 꼭 풀어 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문제를 늘 풀어 줘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지까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이 많아도 핵심을 풀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행하신다.

59. 사랑으로 대해 주고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 주신다.
60.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도 “시키셨으니 행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사랑해서 행하겠습니다.” 해야 맞다.
61. “하나님이 시킨 일은 절대 순종해야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합당하니 연결이 된다.
62. 선생은 하나님을 모셔 봐서 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알고, 하나님을 40년 동안 공적으로 모셔 봐서 하나님의 속도, 성령의 속도, 성자의 속도 아는 바니 그러하다.
63. 사랑해서 해야 성서의 예언된 말씀이 이뤄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성서에 예언된 많은 것들을 시대마다 이루는데, 그렇게 한 자들만 이룬 것으로 해결이 된다.
64. 사랑을 중심해서 하면 다 배운 것과 마찬가지다. 나머지는 거기에 다 속한 것이니라.
65. 성서에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나머지는 다 거기에 속한 것이니라.’ 했다. 늘 그렇게 해야 성서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66. 선생이 왜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 왔기 때문이다. 의무로 한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한 것이 아니다.
67. 주는 사명 자체가 사랑이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68.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켜서 했다 하지만, 주는 사랑으로 했는지를 본다. 사랑해서 했는지,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했는지, 자리 채우기 위해서 전도했는지를 본다.
69. 극적인 세계에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보면, 사람들이 불쌍해서 못 본다. 너희에게 공휴일이 없으면 공휴일 없는 심판을 너희가 받는다. 공휴일과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공휴일이 있을 수 없다.
70. 항상 사랑으로 행할 것이다. 섭리사는 교리가 <실천>도 있고, <사랑>도 있다. 사랑 실천이다!
71. 그 크고 큰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도 “휴거는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하고 하나님은 성경의 큰 비밀을 말씀했다. “하나님을 극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휴거가 이루어진다.” 하고 결국 풀어 주었다.
72. 하나님이 “정녕코 내가 이루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상과 정신과 행실을 말한다. 정녕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말게 하리라 하는 것이다.
73. 성서에 하나님이 “내가 이루리라.” 한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메시아를 보내서 땅에서 정녕코 그 사랑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74. 메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정녕코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에 응한 것이다.
75. 하나님이 “정녕코 이루신다.” 는 것은 그 급수대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역사를 펴신 대로 깨닫는다.
76. ‘정녕코 이룬다.’ 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끌어낸 것도 있고, ‘정녕코 이룬다.’ 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인간 구원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정녕코 하나님이 사랑할 것을 다 사랑해 주고 인간들로 사랑받을 것을 다 사랑받고 끝났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녕코 이루어졌다는 최고의 단어이다.

77. ‘관리한다’는 것에는 간섭도 하고 주관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다.

78. 하나님을 사랑으로 풀어 뿔으면 이제 하나님을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관리’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만,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 주고 증거해 주는 것들을 모두 관리의 차원으로 본다.

79. 하나님께 늘 관심 갖고 사랑 면으로 하나님을 관리해야 된다. 다른 것은 씨가 먹히지 않는다. 사랑으로 대해야지, 다른 것으로 대하지 말라.

80.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다 가지고 있고,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세상 경제도 하나님이 다 쥐고 계시면서 뿔다 뿔었다 이리저리 조종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느냐.

81.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랑으로 투자하셨다. 구약 때는 종들을 사랑하시고, 신약 때는 자녀 급의 사랑으로 투자하시고, 성약 때는 애인 사랑으로, 한 몸이 된 사랑으로 투자하셨다.

82. 그런데 그리 투자했어도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마지막 최고의 비밀인 사랑을 투자하셨는데 “사랑을 몰라주고 사랑을 망령되게 하느냐?” 하신다. 이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행하지 않으면 요나 짝이 된다.

83. 선생이 하나님께 많은 사람을 전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아나운서 하려고 세상으로 떠났을 때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 돌이키고 다시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을 돌이키게 해 주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했다. 그 후 다시금 역사를 하셨다.

84. 그때는 사명을 몰랐을 때다. 사명을 알고 보니까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사명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85. 누구든지 사랑을 멀리할 때는 “너 왜 사랑 안 하고 멀리하느냐?”라고 하지 않는다. 다른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 그 말은 본인이 깨닫고 할 때까지 놔둔다. 답안지를 주지 않는다.

86. 시대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치 않고 그에게 관심을 안 가지니, 정치의 핵심 주권자들이 됐든, 법의 주권자가 됐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

87. 하나님은 축복에도, 화에도 모두 끼어 계시다. 축복받는 데에도 주가 끼어 있고, 무서운 진노의 세계를 받는 것에도 주가 끼어 있다.

88. 주의 입에서 이미 말이 나갔다. 주를 잘못 대한 것이 있어서 그러하다. 하나님께 잘못 대한 것이 있어서 그러하다.

89.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 빗나가서 멀리 가면, 마치 절벽 길을 계속 가는 것과 같다.

90. 주를 떠나고 주의 마음과 일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만 믿고 간다는 것은 유대 종교의 사상이다. 유대 종교는 주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데, 결국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앞에 있었다.

91.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다. 그러나 메시아가 왔을 때는 메시아가 온 것을 중심해서 메시아를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도 안 되는 것이다.

92. 하늘 편일지라도 보다 가인 입장은 사명의 위치가 다르다. 메시아 위치가 다르고, 증거자 위치가 다르다. 하나님의 위치에는 항상 메시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93. 유대 민족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다 걸렸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도 사탄 주관권에 살게 되었다.

94.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어야 한다. 가인은 사회를 보고, 아벨은 제사장으로 설교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혼자 하나님께 나가서 바로 사탄에게 걸려 버렸다.

95. 항상 주와 같이 모으고, 주와 같이 하나 되어 하라.

96. 흔히 섭리사를 나간 자들의 사상을 보면, 시대 주를 버리고서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고 간다고 했다. 그런데 다 걸려서 사망이 잡아가 버렸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사형선고를 내리셨다.

97.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최고다. 하나님이 뜻을 짊어 실천하며 이루게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98. 누구든지 똑같다. 시대 신부가 됐어도 신부 혼자 알아서 해야지 하면 안 된다. 떨어지면 사탄이 바로 개입한다. 이길 수가 없다. 주와 같이 해야 이기지, 주를 빼 놓고는 이긴다는 단어가 없다.

99. 늘 주와 일체 되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자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신다.

100. 기독교는 그렇게 엄청난 성령집회를 했어도 주를 못 맞으니 이제 성령집회를 못 하게 되었다. 역사를 안 하기 때문이다.

101. 주와 일체 돼서 행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행해야 된다.

102. 주가 사는 날까지다. 주가 생을 다하고 떠났을 때는 다르게 된다. 그때는 성령도 안 계시고 하늘로 가신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103. 성자도 세상에 강림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떠나셨다. 땅의 목적, 신부 되게 만들기까지 6000년이 걸렸다. 다 하고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아직 땅에 메시아가 사니 성령이 오셔서 그와 나머지 역사를 이루신다.

104. 메시아를 중심한 성령 역사다! 메시아가 없었을 때는 증거자들의 역사였다. 메시아가 땅에 와서 활동하면 메시아를 중심한 성령의 역사다. 주가 없을 때는 증거자들이 메시아와 일체 되어서 하고, 주가 부활했을 때는 주를 중심한 역사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말씀을 짊어 하나하나 초근초근 전해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풀고 관리하는 것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풀어 주고 성령님을 풀어 주고 모든 것을 풀어 주는 일을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풀려야 뜻을 이뤄서 하나님이 성서에 말씀한 것을 한 걸로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한 주일 동안 말씀 들은 것, ‘풀어 주고 관리하라,’는 말씀을 땅의 것도, 하늘 것도 다 배웠으니 그대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항상 사랑으로 행하여 그리해야 된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같이 행하며 같이 먹고 같이 즐기며 같이 살게 늘 우리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지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너희는 같이 하라고 하면서도 또 현실에 임해서는 그러지 못하는데, 그것을 한 만큼만 하늘에 남아지고 하늘나라에 너희 집을 건설해 간다.” 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부르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곳, 증거하는 곳에 함께하시고, 듣는 자들이 시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 행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도록 간구합니다. 이들을 긍휼과 자비로 불드시고 늘 사랑을 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사탄의 물림을 받는 자, 잘못 생각하고 행하는 자, 흑암권에 껴 있는 자들을 다 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열심히 전에 하던 대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물러가게 하며, 하나님이 천군을 불러서 하나하나 사탄들이 끼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도 생각도 온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2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낙심하지 말고 실망도 할 것 없이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 꼭 결실을 얻는다.
2. 주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도 목적을 놓고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고, 실망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3.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서 써야 되듯이, 집이 없으면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듯이,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된다.
4. 낙심되고 실망할 것이 많으나 그로 인해서 갈 길을 가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자기 존재를 위해서 갈 길은 가야 된다.
5. 성서의 모든 역사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왔지만,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낙심되는 일도 많고 포기할 일도 많았다.
6. 그러나 하나님은 늘 끝까지 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그 시대마다 결실해서 다음 시대를 희망 있게 만들어 놓았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7. 기대에 어긋나는 많은 일들은 본인이 채우고, 본인이 못 채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하고 간구하라.
8. 기도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신다.
9.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때는, 하나님의 <정한 날>이다. 그때 이루어지면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10. 섭리사를 크게 볼지라도 40년 동안 역사는 그 시대가 와야 이루어졌다.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에 뜻들이 이루어졌고, 좋으나 나쁘나 때와 시기를 따라서 이루어졌다.
11. 기도할 때도 낙심치 말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꼭 이루어진다.
12. 그것은 너의 생각일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하고 바라는 생각이니라. 하나님이 자체적으로도 행하시지만 땅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다.
13. 기도해 났으면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꼭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고 행하라.
14.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 많고 포기하는 것도 많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함께해 주신 것같이 지금도 함께해 주고 계신다.
15. 어떤 자들은 믿음이 좌절돼서 낙심하기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몰라서 그러하기도 하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몰라서 그러하기도 하다.
16. 섭리사를 나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낙심하고 포기해서 나간 것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환난도 어려움도 이기고 왔다.
17. 환난은 각자 사명대로 온다. 집을 짓는 자는 집을 짓는 데서 어려움이 오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데서 어려움이 온다. 그러나 끝까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행해야 얻을 것을 얻는다.
18. 우리가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길'이다. 누구든지 하다 말면 그 길은 무너지게 된다.
19. 누가 "휴거를 이뤘다. 구원받았다." 해도 자기 인생이 지금 살아 있는데 하다 말면, 본인의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영의 세계도 움직인다.

20. 현재까지 잘하고 있다가 육신이 죽어서 못 하게 되는 것은 그대로 영이 얻으면서 가고 있으니 괜찮다.

21. 그러나 육신이 살아 있으면서 포기하고 안 하면 본인이 고통을 받으며 살든지, 사망길로 살기 때문에, “육신은 사망길의 생활을 해도 영혼은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은 해도, 실상 육신의 행위를 따라 그 영혼도 구원이 안 되는 것이다.

22. 누가 집을 짓다가 다쳐서 안 하고 말면, 아무리 힘든 가운데 지었어도 그 집은 헛 집이 되어 폐허의 집이 되고 만다. 썩고 곰팡이가 피고 버리게 된다.

23. 늘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기가 만들고 해 놓은 일은 계속해야 된다.

24.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잘하다가도 교회를 다니다가 말고 안 나오게 되면 그동안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이 육신을 따라서 그대로 소모된다.

25. 존재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자기가 잘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26. 성경을 보면 “눈까지 빼어 줄 것같이 하던 너희가 이제는 달리 가느냐?” 하고 바울이 말했다.

27. 달리 가면 다른 길로 인생이 가는 것이다. 환난과 자기의 어려움, 그리고 상대방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리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끝나 버린다.

28. 불신하면 불신한 대로, 배신하면 배신한 대로 마지막 육신이 행하는 그대로 간다.

29. 세상에서 살면서 70~80년을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80세부터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거의 것을 해결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현재의 것도 해결하고 존재하게 된다.

30. 그 나이에 행하는 만큼 그대로 구원받는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31. 그런데 어떤 자가 80년 동안 잘 믿다가 10년 동안 안 믿고 세상길로 가고 끝났다면, 하나님 주관권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권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

32. 세상에서도 가다가 말면 아예 안 간 것만 못하게 된다. 오히려 간 만큼 손해가 간다. 그러니 끝까지 가야 된다.

33. 휴거된 영들을 보면, 휴거되어 육은 땅에서 휴거된 주관권에서 살고, 영은 하늘 주관권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육신이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되면 육신도 사망권으로 가고, 영도 사망권으로 다시 내려온다.

34. 자기 육신이 주관권을 벗어나면 마음도 벗어나게 된다.

35.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육신이 벗어났는데 마음이 안 벗어났겠느냐? 마음을 영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육신이 중하다는 것이다.

36.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소속이 되어 살면서도 마음이 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고 사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 육신은 그 속에 살아도 마음은 천국일 것이다. 다만 주관권이 다른 세계여서 실제로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37. 성경의 여러 군데를 봐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다.

38. 항상 실존을 해야 된다. 실제 행해야 된다.

39. 정치인들도 정치하다 보면 낙심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한다. 어떤 정치인은 정치하다가 너무 심각한 정치적 부패를 알고, 정치가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보고 못 하겠다고 나와 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정치인이 아니다.

40.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 고쳐 가면서 개혁을 하면서 행한 자는 이러든 저러든 정치인 주관권에 있는 자다.

41. 종교가들도 어려움이 많다. 목회할 때 보면 따르는 자들도,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 주관권에서 실망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다.

42. 그런 일들로 인해 할 일을 못 해서야 되겠느냐?

43. 낙심되고 실망할 것이 많으나 그로 인해 낙심하고 갈 길을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44. 늘 단상에는 볼펜을 놔둬야 하는데 볼펜을 두지 않아서 쓰지를 못 했다. 선생에게 낙심될 일, 실망될 일을 해 놓았다. 그렇다고 선생이 말씀을 안 받고 안 전해서는 안 된다.

45. 볼펜이 없으면 또 갖고 오라고 해서 쓰면 되고, 본인이 안 가져왔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온 것으로 쓰면 되지,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하면 되겠느냐?

46. 항상 세례 요한은 “주를 모시려니 주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을 못 하겠나이다.” 했다. 바짝 따르는 자는 주가 직접 하는 일 외에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47. 선생이 하는 일 외에 손이 안 가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주 기계적으로 신이 되어 날렵하게 해 준다. 안 도와주면 갈 길을 못 갈 정도이다.

48. 그와 같이 모두 실망했던 것이 있으나 꼭 채우면서 가야 된다.

49.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주가 온다면 ‘주를 모시고 섬겨야 할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모든 만사를 준비해 놓고 예비해 두고 척척 해 줘야 된다.

50.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낸 자, 왕 중의 왕, 천왕이 다녀가는 것을 알아라.

51. 준비가 안 된 곳은 다른 태세로 가게 된다. 주는 신랑이니 신부들을 신부들로 대하며 가야 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가야 될 곳도 있고, 중후하게 또는 근엄하게 해야 될 것도 있다.

52. 여러 장단에 뿔과리는 뿔과리만큼 치고, 북은 북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치듯이 그때그때 대해 주면 되는데, 선생은 하는데 따르는 자들이 하지 못하면 한 것이 도움이 안 된다.

53. 섭리사 전체가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면 더 멋있게 이상적으로 한다. 항상 해 놓은 대로 한다.

54. 자기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도 많이 있다. 자기가 시대에 맞춰 못 하니 낙심이 되고, 자기가 할 일 못 할 때도 낙심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 낙심된다.

55. 선생도 세상에 살 때 낙심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꼭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노래해야 하니 노래가 필요하다. 혼자 있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노래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려니 안 되고 낙심되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다.

56. 오랫동안 나름대로 조금씩 했지만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며 좋아하는 만큼은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만큼은 할 수가 없었다. -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 한 지 약 60년 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57. 어제도 운동 끝나고 10곡을 작사, 작곡해서 노래 불렀다. 음성을 여러 가지로 내는 것도 더욱 알게 되었다.

58. 이같이 극으로 낙심치 않고 가면 결실하는 날이 있다. 끝까지 가면 다 이루어지는데 뭣 하러 가다 마느냐?

59. 행실도 고치기를 원하는데 잘 안 고쳐진다고 낙심할 것 없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본인도 고치고 깨닫고 하면서 자꾸 고쳐 나가면 된다. 그러면 잘되고 형통하고 틀림없이 육도 영도 성공하게 된다.

60. 선생은 현재까지 약 350곡을 작사, 작곡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한 것도 아니고, 1년 남짓해서 그와 같이 한 것이다.

61.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낙심치 않고 하나님을 극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려면 그만큼 극적으로 행해야 된다.

62. 항상 섭리사를 나간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 힘들고 더 이상 버틸 길이 없다며 나간 자도 있고, 환난기 때 하루 이틀 나오지 않다 보니 못 나오기도 하고, 혹은 말씀이 안 믿어져서 못 나오기도 했다.

63. 어떤 자는 고등학교 때 왔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대학교 때 다시 왔는데,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죽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 때 두 때 반 때 말씀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니 또 안 나오게 되었다.

64. 메시아는 다 안 믿어져도 무조건 믿고 따라와야 된다. 자기 생각과 이치가 달라도 무조건 믿고 따르며 와야 된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가도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알면 따라가야 된다.

65. 자기 집에 불이 났으면 저 사람이 소방대원이 아니라고 불신되어도 불 좀 꺼 달라고 하고 따라가야 된다.

66. 자기 쪽만 보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쪽도 보고 따져야 된다. 수학의 공식도, 세상의 삶의 공식도 똑같다.

67. (하나님) 나도 넣고서 할 것을 계산하며 하라. 너희들끼리 생각하면 부족해서 낙심되고, 안 되니까 낙심되고, 또 안 되니 포기한다. 나 하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성자도 있다. 다 포함하라.

68. 하나님을 포함하면 90%가 포함되는 것이다.

69. 평소에 목숨 걸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

70. 설교할 때는 설교로 말씀이 나가고, 운동할 때는 운동으로 하나님의 몸이 되어 움직이며 보여 주는 것이다.

71. 주는 각종의 것을 각양각색으로 행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의 차이요, 행함의 차이다.

72. 모두에게 이지가치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성자도 주도 계시니 늘 기도하며 하라.

73. 기도해서 일개 민족의 운명도 좌우시켜 놓고, 다 쓰러져 죽을 자들도 살려 놓는다. 신부들의 기도예 따라 하나님도 행하신다.

74.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75. 돌이 다섯 번씩 무너졌어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정신, 사상, 생각으로 함께하셨으니, 그 훌륭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과 웅장함과 신비한 생각과 사상을 길이길이 말해 주고 있고, 돌이 없어질 때까지 해 준다.

76. 자기가 한 일이 크다 하지만, 주가 한 일이 그리도 크다. 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았으니 그가 한 일은 주로 인해서 되는 일이다. 구원받지 않고 죽었으면 천하의 모래알만 한 일도 하지 못했다.

77. 항상 하나님께도 감사 감격하고 늘 주로 인해 산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라. 하나님은 그 인생 죽을 때까지 계속 그와 같이 해 주신다.

78. 선생은 전세살이 그만하고 원 교회를 세우게 해 달라고 오랫동안 그렇게도 원해 왔다. 그런데 지금부터 불과 1~2년 전에야 교회들을 전부 사게 되었다.

79.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우선 부모 집에 있는 것이다. 결혼하고서 신랑, 신부가 같이 살아야 되니, 그때 집이 있기를 부모도 원하고 본인들도 원한다.

80. 섭리사는 결혼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성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불과 1~2년 만에 거의 어려운 것을 다 해결했다.

81.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90% 밀어주면서 하게 했다. 이런 성전들을 지을 것은 감히 생각도 못했다.

82. 그동안 수백, 수만 가지의 낙심할 것들을 이겨 왔다. 승리해 왔다. 싸워 왔다.

83.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으며 왔느냐? 지금은 다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해서 신부가 신랑 시중들듯이 시중만 들고 가면 되는 때이다. 주가 와서 다 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안 해도 된다.

84. 하나님이 2015년 휴거 이후부터는 상상도 못 하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고 계시다. 이겨 온 사람들은 축복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행하고 있다.

85. 각종, 각양각색으로 실망될 것이 많지만 믿고 행하라.

86. 믿다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 데 있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무조건 자기 영혼을 구원받고 사는 데 집중해야 된다.

87. 메시아 하나만 구원을 확신하고 완벽하게 생각한다. 나머지는 육신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충성으로 열심히 더 해야 된다.

88.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행하는 그 한 명으로부터 된다. 그가 그렇게 크다. 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고 낙심치 말고 행하라.

89. 가다 말면 그날부터 일점일획도 되는 것이 없다. 불안, 초조, 두려움, 고통의 세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세계가 된다.

90. 한 주일마다 다른 단계로 계속 가는데, 그 주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본인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고 성령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하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로 인해서 나 여호와에게 오는 길을 포기하면 되냐? 영원한 구원 문제가 있는데. 너희 영혼이 너희 생각과 너희 행위와 같이 가는 것을 모르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말씀하심을 듣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순교자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가는데. 주는 십자가를 10년이나 지고 갔고 또 가는데. 주가 받은 것은 어려움과 고통은 상상도 못 하는 고통, 그로 인해서 낙심도 하고 주는 너희를 보고도 낙심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낙심치 않

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와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너만 낙심될 일이 있느냐? 주도 낙심될 일이 그리도 많았다. 그럴 지라도 끝까지 낙심을 꺾고 와서 구원역사 이루고 하지 않았냐? 본인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도 구원도 받는다고 하지만, 구원주가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신약시대는 주로 인해서 되었고 성약시대 때는 다시 오는 주로 인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하와 공의로우심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서로 화평케 하며 서로 좋아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이 천국이요 이상세계요, 거기서 벗어나면 두려움과 고통과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사정없이 짓밟고 짓밟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와 같이 일체 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충성하다가, 역시 실망된 일이 있었어요. 적이 쫓아왔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낙심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한 자들이 다 회복되도록 모두 서로 잘하고 서로 충성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행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은혜와 사랑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도록 축복하옵시다. 잘되고 형통되며, 오늘도 자기를 구출하며 낙심치 말고 신나게 행하도록 하여라. 내가 하나님께 낙심하고 수만 가지를 낙심했지만, 다 해결해 주셔서 현재까지 왔으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와 사랑을 드리니, 늘 오늘도 나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시고, 나에게 낙심하는 자, 내가 낙심하는 자, 서로가 돕고 함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상을 뒤집어 주시고 생각을 뒤집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탄은 낙심하도록 각종 괴악한 일을 하고, 낙심하는 자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탄아, 마귀야, 귀신아, 다 물러가라. 낙심하는 자에게서, 포기하는 자에게서 물러가라.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였으니,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섭리 길을 가다가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각종으로 있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라. 낙심도 말라. 끝까지 가면 거둔다. 이루어진다.
2. 하나님은 중간에도 계속 역사하시지만, 특히 끝에 가서 행하신다. 끝에 가야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행하신다.
3. 사람들이 볼 때도 끝까지 다 행한 후에 평가한다. 중간에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4. 우리 인생의 삶을 볼지라도 가면서 더 좋아지고, 가면서 더 나아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보고 따진다.
5. 선생에 대해서도 동네에서나 많은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끝까지 안 보고 당시 조금만 보고 “틀렸다. 잘못된. 너는 성공 못 한다. 어렵다.”라고 평가하곤 했다.
6. 운동을 할지라도 승패를 가려 평가하려면 끝까지 보고 평가해야 하는데 중간에 몇 번 실수했다고 틀렸다고 하고 말면, 평가를 잘못 내리게 되고 향의 거리가 된다.
7. 하나님도 사람이 행하는 것을 끝까지 다 보고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가라. 끝까지 해 봐라. 낙심치 말고 하라. 너희들이 해야 될 근본의 도리다.” 하신다.
8. 선생에 대해서도 끝까지 안 지켜보고 사람들이 평가해 버리고 보기 싫다고 나가 버리기도 했다. “인원이 안 불어났다.” 하고, “메시아가 여자를 가까이한다. 말씀이 100개는 맞으나 1개가 안 맞다.” 하고 따지고 흠을 잡았다.
9. 어떤 사람이 다 여자의 모습인데 성격이 남자 같다고 그것을 보고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혹은, 다 여자의 모습인데 손이 남자 같아서 여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10. 핵을 가진 사람은 포기를 안 한다. 핵은 한 번 터뜨리면 끝이다. 여자의 핵인 금단의 과일, 남자의 핵인 생명나무

가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11. 작은 일로 인해서 낙심치 말라. 낙심하고 순간순간 포기하는 것들을 보면 별것도 아닌 것으로 포기한다.

12. 성격이 자기와 맞지 않다고 파르르하고, 변하고, 나가떨어지는데, 그러면 링에 올라가서 싸우는 세계적인 선수는 못 된다.

13. 세계적인 선수가 되면 링에서 얼마나 얻어맞는지 모른다. 선생은 권투 경기를 많이 본다. 선생의 입장과 인생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선생은 늘 심신을 단련하고 영의 세계를 단련한다.

14. 사탄들이 얼마나 때리고 패는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얻어맞아도 사탄이 그렇게 하는지를 모른다. 어떤 육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는 너무 모르는 바보다. 영계를 못 보는 사람들이다.

15. 영계를 보면 밤에 싸운다. 사탄들이 도끼도 집어던지고 칼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혼도 영도 때린다. 그것을 봐야 기도하면서 싸운다. 사람과 싸울 때 보면, 사탄도 그 편이 되어 같이 싸워 준다.

16. 영계를 보지 못하면 사탄한테 진다.

17. 말썽을 늘 저장하고 기록해서 수시로 보고 뛰고 달려야 된다.

18. 선생은 일생 가운데 볼펜 5000자루 이상을 썼다. 10년 동안 약 4000자루 썼으니 나머지 65년 동안 얼마나 썼겠느냐? 베트남에 있을 때도 엄청난 글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결국은 문학자가 되었다.

19. 하나님이 선생에게 권투하는 것을 보여 주며 가르치셨다. “아무리 권투를 잘해도 얻어맞는다.” 권투는 안 맞고는 이기지 못한다. 한 번 KO로 이기는 것은 아주 극적인 일이다.

20. 보통 비등비등한 사람끼리 붙여 놓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맞을 수는 없다. 맞고 또 맞는다. 다만 맞아도 나가떨어지지 않는다. 얻어맞고도 나가떨어지지 않으니 상대와 싸우는 대상이 된다.

21. 메시아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자꾸 물어봐라. 수만 가지로 훈련했다. 사탄이 잡아먹으려 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알고도 수만 가지로 가르쳐 놓고 딱 붙여 놓았다.

22.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 한번 해 봐라. 붙어 봐라. 내 아들과 내 사랑하는 신부와 붙어 봐라.” 하시고, “지게 생겼으면 내 능력과 권세로 너의 주먹을 쳐서 휘날리게 하리라.” 하셨다.

23. 이것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다.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다. 영계에서 박치기 왕을 찾았다.

24. 메시아는 지구상에서 싸워서 ‘최고 급’이 되었다. 최고 급 정신이 되고 최고 급 머리가 되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도 한번 붙어 보라고 한다. 사탄도, 마귀도 다 붙어 봐라.

25. 육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하다. 사상과 정신과 생각이 강한 자다.

26.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서 내보내신다. 하나님은 주가 이기는 것을 고소하게, 좋게 여기신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마지막에 내보내셨다.

27. 주의 머리는 시대 말썽으로 강하게 만들었다. 말썽은 절대적이다. 주가 이겼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재림역사 그것이 아니라 해도 믿지 않는다.

28.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그렇게 강하니 이길 자가 없다. 불신하고 나간 것은 진 것이다. 주와 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와 같이 모으고 헤어서 이긴 자가 되고 결국 40년 역사의 승리를 했다.

29. 지금은 지구촌에 수만 명씩 따르고 시인하며, 환경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역사를 보니 믿어지지만, 그 전에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우습게 보이는 환경 속에 있었다.

30. 그러나 옛날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았다. 말씀 몇 개만 듣고도 깨닫고 울고 절하고 쓰러지고 기절했다. 감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요즘 사람들은 반응이 별로 없는 것이 주께 충격이 된다.

31. 40년 전, 50년 전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불같이 주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어떤 자는 매일 밤마다 모기가 들어오든 말든 예수님 들어오라고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했다. 또 어떤 자들은 농(籠)도 사 놓고 방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물건도 사 놓고 기다렸다.

32. 선생만 해도 월명동 주위에 다 표시해 놓고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침마다 가 봤다. 마치 토끼 울무를 해 놓고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아침마다 가 보듯이 했다.

33. 지구촌에서 메시아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더니만, 그가 기다린 자가 되었다. 애간장 태우며 기다린 자가 기다린 자가 되었다. 기다린 자가 주인이 되었다.

34. 사람을 뽑을 때는 인물보다 정신, 마음을 본다. 그 간절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보고, 주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본다.

35. 항상 중심인물을 뽑을 때는 마음을 보고 뽑는다. 마음을 계속 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인격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가문도 확실히 본다.

36. 예수님도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볼 만한 것도 없었지만 그는 메시아라고 성경에 평가했다.

37. 메시아를 뽑을 때는 최고로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린 자를 뽑았다.

38. 선생은 메시아를 제일 많이 기다렸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도 의지해 봤지만 희망이 이뤄지지 않았다.

39. 옛날에는 월명동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 외롭고 쓸쓸한 골짜기에서 앞산에 올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답답함을 면하곤 했다.

40.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기다렸겠느냐. 사랑치 않으면 안 기다렸다. 예수님을 형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인으로 보고 섬겼다.

41. 꿈에서도, 영계에서도 예수님만 따라다니며 평생 심부름하겠다고 하니, 예수님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래도 따라다니겠다고 하니 “심부름 시킬 것이 없다.” 했고, 그래도 따라다니겠다고 하니 승천하기 전에 “이 붓은 마지막 붓이니라.” 하며 붓을 주셨다.

42. 메시아가 준 바통 중의 하나는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43. 앞사람이 바통을 준다. 성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통을 주셨다.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에게 “바통으로 무엇을 받았냐?”라고 물어보면 각종으로 얘기하는데, <붓>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붓을 선생에게 주며 “한 자루는 내가 들었고, 한 자루 남았다.” 하셨다.

44.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45. 옛날에 TV에서 권투 선수 알리가 나와서 싸우는 것을 봤다. 하나님은 알리와 다른 권투 왕이 싸워서 알리가 이기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러면서 “권투 왕이 바뀌듯이 시대 주권자들도 이와 같이 모두 바뀌고, 이 시대 메시아도 바뀐다.” 하셨다.

46. “네가 저런 식의 사람이 되니 사탄과 싸우고 시대와 싸워야 한다.” 하시며 보여 주신 것이다. 그때 몇 번 얻어맞더니 나중에 7라운드에서 KO 펀치 때려서 이기는 것을 보여 주셨다. 얻어맞듯 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마지막을 이기는 것을 깨달았다.

47. 아무리 강한 자도 얻어맞는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한다. 피를 토하면서 이긴다. 이기면 후에 ‘면류관’을 쓴다.

48. 권투 선수들은 허리에 ‘띠’를 두른다. 인대산을 한자로 표기할 때 인대산(印大山), 혹은 인대산(人帶山)이라고 쓴다. 인대산(人帶山)을 잘 풀면 결국 ‘허리띠’대(帶), 요대(腰帶) 대(帶)자가 된다. 왕들은 요대부터 다르다. 요대가 면류관이다.

49.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해 주신다. 외부 사람을 통해서 ‘왕의 요대’를 해 주셨다. 독수리 눈에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주셨다.

50. 어떤 것은 하나님이 100% 안 되게 트시니 그때 낙심한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서 그리로 튼 것이다. 하나님이 트느라 계획적으로 하신 것인데 낙심하게 된다. 낙심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지만, 낙심하지 마라.

51.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너의 유익을 위해 뜻이 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했으니 듣고 깨닫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오늘도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 있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온 민족도, 온 세계도 언제 나를 알아보고 따릅니까? 알아보고 따를 때는 한참 후라도 미리 축복해 주니 모두 잘되고 형통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믿고 사랑할 때 시대의 축복을 받음은 영영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모두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축복하니 축복이 되고, 내가 책망하니 책망이 되고, 내가 저주하니 저주가 된다고 그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욕신을 쓰고 말씀하십니다. “<내가>라는 것은 보낸 자가 아니고, 보낸 자를 통해서 나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런다.” 하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영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이상적인 일을 놓고 가도 거기에는 해야 될 일들이 있다.

2.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안 되고, 생각보다 달리 되고, 막막하고, 힘이 없어 못 하고, 어려워서 못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본인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해 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해 주신다.

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다 써먹으신다. 그때마다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4. 사람이 잠을 자든지, 어떤 일을 두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관권에 있으니 그 혜택을 본다.

5. 모든 세상의 이치는 동일하다. 그 주관권에 있으면 죽든지 살든지 그 주관권의 기본 혜택이 있다. 기본적인 혜택, 간접 혜택, 직접 혜택이다. 또한 그 주관권에 있으니 스스로 하게 되면서 존재를 한다.

6. 그러나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혜택을 못 본다. 다른 데 가면 다른 주관권의 혜택을 본다. - 이것이 일반적인 존재의

논리다.

7. 선생은 ‘아예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그 주관권의 혜택을 보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도를 깨달았다.

8. 행여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대답이 없을지라도 그 주관권의 혜택을 보면 존재는 할 수 있다. 모든 만사가 그러하다.

9.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험 드는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때는 생각해야 된다.

10.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고, 생각을 통해서 자기 어려움을 해결하게 된다. 생각을 놀리지 말고 생각의 일을 하라.

11. “시계처럼 살아라.” - 이는 시계처럼 꾸준히 가라는 것이다. 시계처럼 시간도 지켜라.

12. “시계는 화장실에 갔다 봐도 간다. 추워도 간다. 더운데 갔다 봐도 간다.” - 환경이 어려워도, 신앙의 찬바람이 치는 일이 있어도 가라는 것이다. 극의 세계에 있어도 가라.

13. “시계는 혼자 있어도 간다.” - 사람이 없이 혼자 있어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쳐다보시니 가라.

14. 그러나 시계가 죽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15. 야곱도 낙심했고, 요셉도 낙심한 일이 있었다. 그래도 끝에 가서 야곱도 잘되고 요셉도 잘됐다.

16.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낙심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이 임해서,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며 역사를 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주가 십자가를 지고 나와서 성령이 그와 함께하신다.

17. 낙심할 일들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끝은 모른다. 밭에 씨를 뿌린 것이 끝까지 가면, 많든지 적든지 결실은 꼭 있다. 모래땅에 뿌리나, 좋은 땅에 뿌리나, 그 나름대로 계속 끝까지 가면 안 죽었다는 것이다.

18.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죽는다. 무조건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19. 선생의 승리의 비결 중 하나는 ‘끝까지 가는 것’이다. ‘하면 살아 있고, 안 하면 죽어 있다.’는 절대적인 법칙을 배우게 되었다.

20. 산에서 ‘타락론’을 배우는 데 18년 걸렸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못 하고 백지장 하나씩 들듯 하니 그러하다. 성경을 한 장씩, 한 절씩, 한 자씩 읽고, 어떤 뜻을 깨닫고 배우는 데도 한 자씩, 두 자씩, 석 자씩 읽으니 오래 걸렸다.

21. 인생도 건너뛰기가 없고 순간 나는 비약도 없다.

22. 4대 교리를 금방 실천하고 싶어도 안 된다. 때가 되어야 실천하기 때문이다. 하루 일도 금방 못 한다. 오후 일은 오후 시간이 와야 할 수 있다. 고로 <때> 하나만 봐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23. 하나님은 절대 ‘때’에 출현하신다. 때가 되어서 출현했는데, 다음은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하느냐.’ 이다.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의 시간이 끝나고 34세에 나와야 다음 바통을 잡을 수 있다.

24. 선생은 34세 되던 1978년도에 나왔다. 하나님과 주는 이까지 하나님 역사의 세상의 예언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맞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예언해 두셨다.

25.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내보내신다. 하나님이 보낸 자 본인이 배우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다.
26. 자기 육과 영, 그리고 자기 육과 혼이 짝이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육과 혼과 영을 구분하지 못한다.
27. 사도 바울이 “네 혼과 영과 육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흠 없이 맞도록 하여라.” 했다. ‘마음’은 육체에 해당되고, ‘혼’은 혼체에 해당된다.
28. 자기 혼체를 보면서 낮에 채워야 된다. 자기 혼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다. 영에 대해 무식한 자들이 다. 적어도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영계를 봐야 된다.
29. 꿈의 세계도 육의 차원에서 육신이 낮에 행한 것을 보는 차원은 <육몽>이다. 혼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것은 <혼몽>이다. 영체의 상황, 영의 활동을 보는 것은 <영몽>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30. 꿈에서 너무 못 보면 계시를 못 한다. 계시를 약하게 보니, 사고도 그대로 당하게 된다. 계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31. 메시아가 와서 외치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
32. 자기 혼이 무엇을 하는지 빨리 보아라. 이것으로 신령한 것을 따지느니라.
33. “귀신들도 주를 알고 떠든다.”라고 했다. 무당들도 혼을 잘 본다. 점술가들이 가장 빨리 안다. 대둔산 용문골 할머니는 선생이 크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34. 거기서 정성을 들인 대둔산 케이블카 사장도 선생에 대해 기도할 때 흰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걸 보고, ‘저분 맞다. 죄 없다. 깨끗한 사람이다.’하고 깨달았다고 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가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다. 또 기도 중에 “저분으로 인해서 대둔산이 좌우된다. 저분으로 인해서 대둔산 모든 개발도 좌우된다.”하는 것도 받았다. 꿈에서 한번은 “나를 따라오라.” 하여 따라 왔고, 한번은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떠나야 된다.” 했다고 했으나 주저하다가 안 들어왔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옷을 갈아입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분의 아들은 말씀을 배우고 바로 깨달았다.
35. 영계를 봐야 사탄도 이기고 사망도 이긴다. 혼계를 못 보면 육적인 자다. 선생은 낮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영화 같이 본다. 기도할 때마다 한 장면씩 지나간다.
36. 선생은 말씀만 신령한 것이 아니다. 옛날부터 온 지구상의 방언을 다 했다. 거의 34개 국어로 한다. 사람들이 너무 주에 대해서 모른다.
37. 준비하고 예비하라. 하나님을 맞고 성령님을 맞는데, 준비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38. 얼굴은 봐도 직접 깊은 대화를 하는 깊은 자리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다. 그런데 그 순간의 기회도 놓친다. 우연 같으면서 자기 앞에 다가온다. 하나님이 직접 온 것을 알아라.
39. ‘주’가 방문한 장소에 교회가 꼭꼭 있다. ‘주’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꼭 교회를 지으셨다. ‘주’가 그리도 크다. ‘주’가 난 지역에 하나님이 지상 궁궐을 지어 두셨다.
40. 주가 마음이 가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로 대하면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고로 꼭 가야 된다.

41. 사람이 이것저것 다 그릴 수 있는데도 관심을 안 갖고 안 그리면 한 장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그려야 그 그림이 존재하게 된다.
42. 영계를 보는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또 보여 달라고 해야 된다.
43. 선생이 아나운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다가 축구 할 때 하나님이 딱 다치게 했다. 그 후에 축구를 평생 안 하겠다고 하고 축구가 무섭다고 했더니, 하나님은 “축구를 해서 다친 것이 아니라 네 사상과 정신이 다른 데로 가니까 내가 쳤노라. 사탄이 치기도 했다.” 하셨다.
44.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도 뜻이 아니면 친다. 자기가 말 안 들으면 자기 밑의 사람을 친다. 부모가 말 안 들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치고, 자녀가 말 안 들으면 그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를 치고,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쳐서 다치게 만들고 사고 나게 한다. 이것은 ‘기본 법’이다.
45. 그래도 모르면 나중에는 자기를 직접 친다. 병으로 치고, 슬픔으로 치고, 괴로움으로 치고, 여러 가지로 친다.
46.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주신다. 너의 수고에 결실이 있다.
47.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고, 주가 말씀했는데도 안 하면 이제는 무(無)가 된다.
48. 하나님을 믿어 주고 행해 주고, 의심이 될 때도 꼭 믿고 가면 결국 하늘의 먹장구름이 사라지고 파란 하늘만 남아서 좋은 날,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
49. 수시로 자기 혼으로 육신을 살펴야 된다. 육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육신이 잘하면 혼이 좋아지고, 육신이 잘못하면 혼은 나빠진다.
50. 어느 때는 혼이 싸우고 있어서 바로 응원했다. 기도해 주고 영체와 함께 말로 선포를 해 버렸다. 바로 혼계를 보니 미사일이 날아가서 쏘히는 것을 보았다. 육신이 그렇게 큰일을 한다.
51. 누가 섭리인을 이성으로 건드려서 바로 미사일을 쏘더니 사고 나서 죽었다고 했다. 나중에 하나님이 치셨으니 빨리 돌아오라 했더니, 돌아와서도 맥을 못 쓰다가 3년쯤 있으니 살아났다.
52. 혼이 꺾이면 육도 영도 꺾인다.
53. 야곱도 요셉도 낙심할 때가 있었으니, 형에게 쫓겨서 갈 길을 가는데 집도 없이 막막했다. “외갓집 가서 잘 지내라.” 하는 어머니의 말만 믿으면 되는데, 가는 과정에 낙심했다.
54. 서운함을 타면 사탄에게 완전히 점령당한다. 사탄의 공격 지점이 된다. 그러니 서운할 일이 있어도 절대 서운함을 타지 말아야 된다. 서운함은 사탄이 주는 절대적인 생각이다.
55. 선생도 서운할 일이 많았다. 기독교에는 그렇게 교회들을 엄청나게 주는데, 우리는 30년이 넘을 때까지 하나도 없었다. 서운함 타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니 결혼한 후에 주셨다.
56. 2012년부터는 약혼식 하고 깨끗이 하여 신부들이 단장하는 기간이었다. 그때부터 성자께서 이제 집 장만해야 된다고 하셨다. 2015년에 결혼식 하고 모두 휴거되니 그때부터 집을 주기 시작하셨다.
57. 결혼하니까 부모가 여기도 저기도 별장이 있다며 주는 격이다. 자기 몸이 되었으니 그때는 가르쳐 준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58. 십자가를 저 준 후부터는 다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것을 다 줬으니 이제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셨다. 세

상을 위해 할 것을 다 해 주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된다. 이때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잘 해야 된다.

59. “결혼해 보니 다르다.” 소리가 나오면 큰일 난다. “결혼하니까 너무 좋네요.” 계속 이 상태로 가야 된다. 알면서도 자꾸 다르게 나가면 안 된다. 누구와 부딪히더라도 절대 자기 남편과 부인과는 부딪히면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다.

60. 그렇게 좋아서 결혼하고서 서로 헤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안 맞고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많이 부딪힌다. <화목>이라는 계시의 노래를 보면 “생각은 각각이나 뜻은 하나다.”라고 했다.

61. 싸우는 것은 절대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다.

62. 다단계는 절대 하지 마라. 축복해 주지 않는다. 비양심적인 삶이다. 자꾸 하면 그로 인해서 손해 가서 자기 영혼까지 죽고, 휴거까지 파괴된다.

63. 선생은 가상화폐를 사면 돈을 엄청 번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장도 사지 않았다. 이것이 환율 문제까지 조종하니 바로 기도했다. 결국 2300만 원짜리가 지금 700만 원으로 떨어졌으니 망했다. 하나님께 조종시켜 달라고 올려 버렸다.

64. 섭리사에서 잘 뛰던 자들 중에서도 회사 근무한다고 하며 염려 말라고 하더니 연애하는 자도 있었다. 그는 거짓말을 했으니 하늘나라에서 쫓겨남을 받고 사망으로 간다. 이미 십자가를 저 뚫기 때문에 지금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바로 끌어다가 잔인하게 고통을 주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깨닫고 은혜롭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되고 형통되며 은혜를 주되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고 세상의 더럽게 노는 자들의 세계에 끼어서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받고, 요셉처럼 받고, 세계를 거닐며 읊처럼 받게 해 주시고. 섭리의 사람들이 정식으로 사업해서 그렇게 경제를 일으키는 자들같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전에도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지금 이들은 내가 듣건대 은행의 돈 3000만 원, 2000만 원 빌려다가 막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된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나를 이용해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안 했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했으니, 이리하는 일을 중단시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총 주시며, “이것도 낙심치 말고, 말씀으로 선포했으니 이제 안 할 것이다. 잘하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서 이들 위에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특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선을 위해서 사는 자들아,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도 말고 끝까지 하라. 그리하면 거두어들이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 이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2. 시대의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시대에 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아, 그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하면 이루어진다.

3. 지난날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순간순간 포기하면서 왔을지라도 끝까지 왔을 때 우리가 원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해서 돕고 거둬들이게 해 주셨다.

4. 하루를 사는 데도 그런 일이 많다. 작은 일도 그러하고 큰일도 그러하다. 어느 때는 하다 보면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먼저 낙심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막막한 바다에 하늘만 보이는 때라도 하나님이 결국 원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5.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일어났던 그쪽 세계를 하나하나 살펴보아라. 항상 그 주일에 하신 말씀을 중심해서 봐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주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기한지를 보아라.

6. 본인은 끝났다며 막막한 생각만 하고 낙심되는 생각만 드는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주를 붙잡고 성령님을 부르면서 할 때는 기적적으로 생각지 않은 일로 인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7. 사람을 통해서, 주를 통해서, 혹은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역시 하나님이다.” 한다.

8. 하나님이 주를 통해서 금주에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 해 주시니 경험하게 된다.

9. 어렸을 때 크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걱정하며 살면서 그 원하는 것이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부르고 주를 부르며 오니 하나님은 원한 대로 해 주셨다.

10. 사람이 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해 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 주시고, 또 주를 통해서 해 주신 것들이 참으로 큰 은혜와 큰 사랑이었다.

11.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

12.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고 주를 믿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고 성령님의 몸이 되고 주의 것이 되어,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성령이 원하는 일이 되고 주의 뜻이 되었다. 그러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13.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해 주시고 돕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거둬들이게 해 주셨다.

14.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행해 주시듯 온 세상을 그와 같이 도우신다.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마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는 안 믿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확실하게 행해 주신다.

15. 친구가 했다 하고, 애인이 했다 하고, 사람이 했다 하지만, 영계를 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어명이 떨어져서 천사들로, 돕는 자들로, 천사들과 돕는 자들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16. 항상 하나님이 90% 주권을 쥐고 있다. 지구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아예 90%를 쥐고 살려고 만들었다. 절대적인 원칙의 역사가 있다. 사람들은 나머지 10%, 자기에게 해당되는 작은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17. 어린아이를 길러 보면 갓난아기라도 자기가 할 일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다. 숨을 쉬는 것도, 젖을 빨아 먹는 것도 본인이 해야지, 대신 못 해 준다. 안 하면 죽는다. 나머지 큰 것들은 엄마가 해 준다.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이요, 천륜의 법칙이다.

18. 하나님은 사랑을 무한히 베풀며 사랑해 주신다.

19.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크신 존재자이시니 아예 꿈쩍도 못 하게 90%를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10%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0%가 자기에게 100%가 된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90% 일이 100%가 된다.

20. 매일 그와 같이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하시는데, 사람들은 우연히 됐다고만 생각한다.

21. 꼭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일들이 있다. 사람들은 존재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각종 철학적인 생각들을 한다.

22. 인간은 자기가 잘못했든지, 상대가 잘못했든지 죽음의 순간을 많이 당하지만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

그런데 누가 돕지도 않고 자기도 포기해 버렸는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많았다.

23. 절대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살려 주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렇다.

24.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관리하고 함께해 주시는데 왜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죽었을까?” 하는 의문을 붙이기도 한다.

25. 어느 날 선생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에서 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어 시체를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죽었나요?”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없었다.” 하셨다.

26. 기도를 해 주는 것이 그리 크다. 본인의 의가 없어도 기도를 해 주면 죽음에서 살고, 어려움에서 산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의 결과가 그리도 크다.

27. 그동안 민족의 일이든 세계의 일이든 기도해서 안 될 일도 되었다.

28. ‘나 하나 기도한다고 민족의 일이 이루어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해서 병을 고치지 않았느냐? 확대시킨 민족도 동일하다.” 하셨다.

29. 개인을 두고 기도할 때 정말로 이를 낮게 해 달라고 부르짖고 손을 대고 뼈를 맞춰 주고 잡아당겨 주며 10년, 20년, 35년 동안 아픈 자들을 현장에서 고쳐 주었다. 죽은 자를 살려 준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아예 죽을 곳에 못 가게 해서 살려 주기도 하고, 죽었는데 살려 주기도 했다.

30. 과거에 이와 같이 해 온 것을 시인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똑같다. 민족이라고, 세계라고 더 소리 지를 것도 없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하셨다.

31. 그때 <기도는 일이다> 노래를 지었다. 그때는 민족이 위기에 있을 때였다. 기도해서 민족을 구해 놓고 노래를 지었다.

32.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네 기도로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된다. 기도가 그렇게 크다.

33.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라.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라.

34.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세계에서 그를 구해 주시니, 기도한 자를 통해서 구해 준 것이 된다.

35.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주가 기도를 다 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 주신다. 성령도, 성자도 주를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구원하는 것에 대해 역사하고 행하시리라. 끝까지 행하여라.

36. 본인은 못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하신다. 이를 깨닫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37. 금주 말씀은 참으로 큰 희망의 말씀이고, 낙심 중에 보장된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나큰 희망의 열쇠의 말씀이다.

38. 지난날 오랜 역사 과정을 보면 개인을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가지를 해 주셨다. 어떤 것은 즉시 이루어 주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10년, 20년, 40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39. 어떤 자는 사망의 문턱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그리고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이끌어 와서 다시 살아나

기도 했다.

40. 선생도 아예 포기하고 세상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다시금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이끌어 주셨다. 어느 때는 신앙의 죽음의 세계에서 일으키기도 하셨다.

41. 어느 때는 하나님 주관권의 세계에서 안 되면 성령 주관권의 세계에서 행하시고, 어느 때는 성령의 주관권에서 안 되면 성자 주관권에서 행하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절대신이 행하시는데 안 될 것이 없다.

42. 세상에서 제일 구원받기 힘든 자가 <메시아>다.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가장 많은 어려움을 받고,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43. 메시아는 가장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구원을 받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구원하신다. 나머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메시아 스스로 구원하기도 한다.

44. 메시아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이 최고로 발악하고 공격한다. 메시아는 모든 따라오는 자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나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겪는다.

45. 성경을 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을 어찌 주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할 수가 있으리오.’ 하고 말씀했다.

46. 시대 신부들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대의 뜻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총을 머리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하는 고통은 안 겪어 봤을 것이다.

47. 선생은 질식하고 죽음 속에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는 등의 고통을 다 겪고 왔다.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70일 동안 굶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면서 역사를 뛰며 왔다. 어느 때는 사형 선고를 받고 세상 의hak으로도 다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 주셨다.

48. 죽음의 세계를 겪은 것이 기억나는 것만 63번 정도가 된다.

49. 전쟁이 일어나면 총공격의 대상은 지휘자다. 민족적으로 보면 최고로 공격당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그를 없애야 끝나기 때문이다. 항상 핵심자가 최고 어려움을 당하고, 최고 고통을 받는다. 이를 따르는 자들은 잘 모른다.

50. 옥에서 “선생을 위해 기도해 달라.” 하고 많은 간구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실감 나게 잘 몰랐다.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 걸핏하면 죽인다 하고, 하루 종일 벽에다 세워 놓고 손만 떼면 죽인다고 하는 자들이었다. 사람을 잘 죽이는 자들과 있었는데도 따르는 자들은 그것을 몰랐다.

51. 어느 때는 정신 나간 사이코들이 같이 있으니 순간순간 무기로 찌르고, 몇 번 눈이 실명할 뻔했다. 늘 엄청나게 몸집이 큰 자들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한 마디 씹어뺨곤 했다. 그런 상황들을 두고 기도해 달라 한 것이다.

52. 역시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53. 사람들은 구원시켜 달라고 매달리지만, 막상 구세주를 잡아당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 섭리사 전체가 주를 감싸고 잡아당기고 심정을 알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54. 주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 자는 딱 한 명 있다. 그를 위해 장편의 노래도 지었다. 직접 고통에 참여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주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55. 주의 마음을 알아주는 만큼, 심정을 알아주는 만큼 축복이 간다. 같은 황금 천국에 가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하늘나라에 가면 똑같은 집, 똑같은 환경에 있지 않는다.

56. 황금 천국도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 핵적인 곳에는 하나님이 사시고, 그다음 하나님 주관권 바로 옆에 하나님과 주를 최고로 사랑하며 최고로 심정을 알아주며 모시고 산 사람들이 살고, 그다음에 그다음의 사람들이 산다.
57. 모시고 섬기고 알아주고 충성으로 한 자들과는 집도, 배경도 엄청나게 큰 차이, 엄격한 차이가 있다.
58. 이 세상에서도 ‘주와 같이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엄격히 차이가 있다. 주는 대하는 대로, 해 주는 대로 간다.
59. 첫 번째로 회개, 두 번째로 감사 감격,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구 - 네 가지 기도를 근본적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들으신다.
60. 하나님이 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셨으니 주가 선포한 대로 안 하면 안 된다.
61. 주는 한 생명을 살리려고 눈물겹게 총도 버리고 목숨도 내걸고 갈 때가 있는 반면, 한자리에서 600명씩 짝 없애기도 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할 때는 팬텀기 폭격으로 한자리에서 600명이 없어지기도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도 무섭다.
62. 주의 생명을 내던지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는 때가 있는 반면, 어느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권유해서 행할 때가 있었다.
63. 베트남전 책 <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는 전쟁의 성경이다. 자세히 또 읽고 읽어 보면 깊은 것이 생각난다.
64.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주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는 ‘엄청난 도를 받은 자’이며 ‘큰 자’이다. 몰라주면 어른도 무시해 버리지만, 알아주면 어린아이라도 마음이 쏠려 간다.
65. 성경을 보면, 이리저리 가시는 주의 발걸음은 뜻에 따라서 공의의 법을 따라서 간다고 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그러했습니다. 주는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자, 지구촌에서 제일 힘든 자가 구원받아 놓고, 그다음에 그다음의 자들을 그가 구원을 시키러 와서 구원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도 말씀해 줬고.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고통이 오고, 참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세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공적, 그의 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 그가 주를 사랑함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포기 않고 힘든 것을 참고 견디 모든 것들을 막막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루어 주고 다시 삶의 세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매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포기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해 준다.” 했습니다. 어젯밤도 그러했고, 어제 종일 지난 것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러할 것이고. 엄격히 우리는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했지만. 우리는 못 한다 했지만. 우리는 자신 없어 했지만,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라. 심정 받아 해라.” 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둘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거두게 하시고, 또한 원하는 것을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각종으로 각색으로 행하신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심정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했어도 하나님은 행하시고, 사람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령도 그러하셨고, 성자도 그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를 절대시하고 믿고 사랑하면, 과거같이 또 돕고 현실도 돕고 행하니 이제는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늘 살아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었으니 모두 그렇게 행하고 살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고. 늘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물리치게 오늘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성령이 함께하사 다 그들의 행위를 깨부쉘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늘 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고 일편단심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모든 민족도, 세계도 끝까지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포기한 것, 낙심한 것은 우리 민족의 일들입니다. 모두 북한에 대해서 낙심해 버렸고, 포기해 버렸고, 이런 세계에서도 끝까지 또 해 온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평화의 세계로, 또한 전쟁 없는 세계로 이끌어 주시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를 통해서 감행한 일이었습니다.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 그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평화의 조건도 세웠고, 사랑의 조건도 세웠고, 하나님의 목적을 행하는 조건을 세웠고, 시대의 새 역사의 조건을 세웠고,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역사를 일단 40년 역사를 펴 왔고, 이리므로 그의 기도를 들으사, 민족적인 세계도, 어떤 뜻 안에 있는 모든 세계도 각종의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월명동 하나님 자연성전 개발할 때도 꿈같은 현실의 역사를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끝까지 포기 않고 행함으로 끝까지 행해 왔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곳도 그러했습니다. 이곳도, 하나님이 주신 보금자리도 그러했습니다. 끝까지 해 왔으니 결국 이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별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것도 주의 것이니 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성전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낙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남들이 사 가 버렸어요. 기도하고 낙심했을 때 전해 주기를 “다시 또 가 봐라. 다시 경매가 올라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할 것이 있겠느냐?” 했습니다. 생명권에 있다가 사망권으로, 이성으로 간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니 잡아당겨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부리노니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애굽 나라의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모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하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니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도,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믿고 주를 사랑하며 가는 자들아. 그 가는 길에 누구든지 어려움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전혀 안 되어 버린 일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는 자는 천륜의 법칙에 의해 거두느니라.
2.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법과 자연의 법칙을 보면, 밤의 끝에 가면 해가 뜨고, 낮의 끝에 가면 해가 진다.
3. 모든 만물의 이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그 터전에 사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같은 원리요, 법칙이요, 이치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의해서 창조해 놓으셨다.
4.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하는 원인은 가는 길에 생각도 아니 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들은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5. 일을 안 할 때는 문제도 안 일어난다. 일을 하니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니 누구든지 일을 할 때 잘해야 된다. 잘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6. 일을 할 때 잘하라. 더 잘하면 더 잘되고, 못하면 더 못된다. 일을 할 때 한 발짝 한 발짝, 한 손 한 손, 행할 때마다 잘하라.
7.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치를 보며, 그 모습을 보며 행해야 된다.
8. 하나하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는 일이 안 일어난다. 행하는 일로 좋은 일만 일어난다.
9. 존재의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가 일어난 것은 자기 책임을 잘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너나 나나 책임을 세밀히 잘해야 된다.
10. 기대대로 안 됐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11. (하나님) 끝까지 하라. 하면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끝까지 하면 한 나름대로 수고한 대로 거둬들인다. 이런 법칙에 의해서 모든 신앙의 세계를 맞춰 나가라.
12.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고 사니 일반적인 일은 안 일어나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크게 일어난다. 첨단의 일을 하기 때문이다.
13.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섬기며 시대의 뜻을 펴는 것’이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첨단의 일이다. 지금 이 시

대에는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최첨단이다.

14. 과거의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도 아니고, 최고 첨단의 천 년 사 역사가 시작되었다. 보통 일이 아니고 크나 큰 일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목숨도 다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15. 신약역사 때도 자녀권의 사명을 다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일,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계에서도 그 영이 이루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다. 신약시대의 최고 첨단의 일이었다.

16. 고로 예수님을 통해 “구약시대 때 안 돼서 새로 시작하는 역사, 다시금 더 잘하는 역사인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17. 또 지금은 신약 때 다 이루지 못한 뜻, 자녀권에서는 이를 수가 없는 사랑의 뜻, 하나님 창조 목적의 뜻,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최고의 뜻을 행하는 첨단의 삶인데 보통으로 해서 되겠느냐?

18. 더 이상 다시 없는 마지막 역사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 너희가 그와 같이 했으면 그리되었겠느냐? 문제도 안 생기고 어려움도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

19. 작은 일이나 큰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나 안 오나,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을 볼지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일들을 행할 수 있다.

20. ‘마음’과 ‘뜻’과 ‘목숨’, 세 가지가 들어가야만 일이 완성된다. 그중 하나만 빼도 할 일 하나가 빠진다. 소금이 빠지든지, 자료가 빠지든지, 기술이 빠지든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음식이 안 된다.

21. 작은 음식을 하든지 큰 음식을 하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이 되었든 큰일이 되었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22.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공부를 해도, 글을 써도, 운동을 해도, 얼굴 분장을 해도 마찬가지다. 옷을 입더라도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되듯 <마음>과 <뜻>과 <목숨> 가운데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모든 일이 그와 같으니라.

23. (하나님) 끝까지 하되,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끝까지 하라. 그래야 얻어질 때에 원하는 것이 거두어지고, 농부가 농사지은 것을 거둬들이듯이 거둬들이게 된다.

24. 한번은 꿈에 보니 메마른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한 주인이 말하기를, 이래 봐도 거둘 때는 아주 이름나고 소문이 나서 많이 거둬들인다고 했다. 꺾죄죄한 곡식을 주인이 키워서 가을이 되면 엄청나게 거둬들인다고 했다.

25. 그와 같이 자신의 곡식이 별로 풍부하지 않아도 자꾸 기르고 키워야 된다. 더 마음을 다하고 더 목숨을 다하고 더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26. 끝까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풍부하게 더 할 수 없이 행하면서 끝까지 행하여라. 그래야 많이 거둬들이느니라.

27. 하늘이 한 것이나 땅이 한 것이나, 또 남자가 한 것도 여자가 한 것도 모두 합해서 하나가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이 합해져서 땅의 이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멋있게 이루어 가고 하늘의 황금 천국을 그 나름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냐?

28.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련도 없이 더 이상 없이 많이 하라.” 하셨다.

29.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최대의 좋은 돌을 갖다 만들었다. 최고 좋은 돌들을 가져다 최고로 휘날리는 하나님의 백보좌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백보좌를, 나의 전을 땅에 두리라.” 하신 뜻을 이 시대 천 년 역사 궁으로 완성하고 있다.
30. 기술이 없으면 최선을 다해도 볼 것이 없다.
31. 선생은 옛날에도 다니면서 글도 써 주고 그림도 그려 주었지만 그때는 기술이 지금만큼 못했다. 현판석에 글씨 ‘자연성전’을 썼을 때는 500번을 썼지만, 지금은 한 번에 써도 그보다 잘 쓴다.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많이 써 봤기 때문이다.
32. 어떤 자는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계속할 수 있냐? 나는 편하게 적당히 살겠다.” 하기도 한다. 영계도 모르고 육계도 모르고, ‘남은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축복을 안 주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33.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할 일을 두고 최고로 해서 최고의 목적지에 가 보는 것이 ‘스릴’이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이룬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다.
34.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주님, 신랑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자랑거리가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35.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해서 그로 인해 오는 ‘자체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도 사랑하고 믿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어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기쁨’을 얻는 것이 근본의 기쁨이 된다.
36. 사랑하는 신부들은 신부 자체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신랑이신 주를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가 원하시는 일을 해 드려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받는 것이다.
37. 올해는 “전도하자.” 했으니 다른 것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38. 전도하자. 많은 생명이 돌아오게 해서, 주가 많은 군중 앞에 이 엄청난 천주적인 하나님의 몸이 되어 외치는 것을 듣게 하자. 그 모습을 보게 하자.
39. 주는 할 때마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행하시기 때문이다.
40. 물론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 가지로 숙달이 되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선생보다 더 잘하는 프로 선수들을 봐도 그 정도로 기쁘지는 않다.
41. 그러나 주가 하시는 것을 보면 기쁘다. 같이 뛰고 싶고 마음이 동한다. 하나님이 그 육신을 쓰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자기 사람, 자기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42. 옛날 임금들도 백성 가운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기를 원했다.
43. 그러므로 신부들이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고 더 좋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신부들로부터 상대적 기쁨을 받으신다.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44. 주는 이를 깨닫고 웬만하면 하나님 보시라고 해 버린다. 그러나 흔히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 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진다.
45. 늘 성령 위해 산다고 하며 성령을 부르고 산다고 하며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가면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많다.
46. 영계로 따지면 성령은 우리의 ‘남편’이시다. 하나님은 남성 신으로서 우리의 남편 되신다. 성령은 여성 신이지만

하나님과 일체이시니 우리 앞에 신랑이 되신다.

47. 엄마에게 아빠라고도 하고, 엄마를 따로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8. 영계에서 따지는 것과 육계에서 따지는 것이 전혀 다른 것들이 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49.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다른 것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공중>이 ‘하늘’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공중>은 ‘우리가 밟고 있는 저 밭의 땅’이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따져 봐야 성경이 풀린다.

50. 너희도 할 일을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니 잘하라. 잘하면 된다. 네가 낙심치 아니하면 이루리라. 포기하지 말라.

51. 하나님이 포기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신부라면, 하나님과 일체 되었으면 하나님과 같이 포기하지 않는다.

52. 성서에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일을 찾아보면, 이미 죄악이 관영해서 열매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으로 소돔 땅을 치듯이 치고 끝낸 일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야 될 당연한 심판을 하신 것이다.

53. 하나님이 포기한 일이 없었으니 우리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54. 과거 역사의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주신 것같이 우리 현실도, 미래도 해 주시리라. 사랑하니 안 해 주실 리가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몸들이요, 신부들이 아니냐.

55.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안 하면 싫다. 행해야 좋다.

56. 섭리사는 지구상에서 최고로 말씀을 많이 듣는다. 메시아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 또한 신부급의 시대라 신부급 주관권에서 항상 자연 계시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계시와 양심의 계시까지 다 받고 있다.

57. 항상 내가 잘못된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 잘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는 전환기에 해당된다.

58. 어떤 것은 실망하고 안 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마라.” 하신다. 결국 낙심하지 않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것이 되었다.

59. 월명동에 심으려고 하늘까지 높은 희망으로 달려갔는데 첫 번째 원하던 것이 안 되었다. 비싸서 안 사 왔다. 그 밭길로 강원도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키 크고 멋있는 빨간 홍송을 사다가 심어 놓았다. 그래서 더 멋있는 것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이 나무 저 나무 골고루 갖다 심었다.

60. 그러므로 안 돼도 실망치 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하기도 하신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으니 늘 감격하고 감사하라.

61.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있다.

62. 당세의 우리 것만 치면 답이 안 나온다. 과거에 선조들이 못 한 것을 후손들이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 못 할 때가 있다.

63. 아담 때 못 한 것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탕감하고 복직해야 될 때가 있었다. 그것은 정녕코 행해야 된다.

64.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어 주고 담대히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65.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일이 있다. 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

66. 선생은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싫어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나빠도, 개발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내가 보낸 자가 난 곳을 성역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67. 하나님의 한마디를 듣고는 그 후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10만 평을 준다고 했어도 안 받았다.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사고가 확 돌아가 버린다.

68.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기 위해 넘어져도 또 하고, 무너져도 또 하면서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왔다.

69. 여러 가지를 깨닫고 분석하고 알고 답을 찾았을 때는 아무리 좋은 답이 있어도 안 쓰는 것이다.

70. 월명동을 개발해서 성전을 만들듯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답이 있다.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하고, 그것을 향해서 낙을 누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쁨을 누리며 가야 된다.

71. 어딜 가나 역시 월명동만 한 곳이 없다. 대한민국 어떤 자리를 가도 월명동이 최고다. 역시 하나님이 “내 거할 곳을 지상에 두리라.” 한 곳을 못 따라간다. 선생은 바위 좋은 데를 찾고 다니느라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다 누볐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

72. 이제는 신부들이라서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위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을 모시고 주를 모신 자들의 기쁨은 크다.

73.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부지런히 많이 전도하라.

74. 선생이 캠퍼스를 순회한 지 하루만에 100명이 전도되었다. 중고등부 영성캠프를 하니 30명, 50명씩 연결되고 있다. 주가 하는 것이 그렇게도 크다.

75.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도 크다. 그러니 다 뒤집어져서 해야 된다. 안 하면 힘이 빠져서 주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 계신다.

76. 멋있게 뛰고 달려야 된다. 언제 차 사고 나서 죽을지 모르고, 병들어 죽을지 모른다. 일본은 지금 일순간에 500만 명씩 병들어 앓고 있다.

77. 선생이 “영성캠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확인해 보아라.” 해서 온도계로 재 보니 월명동 온도가 18도까지 올라갔다. 그 전날에는 영하 13도였다. 이와 같이 변화무쌍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처음 봤다.

78. 하나님의 역사도 과거를 생각하며 현실을 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잘하되, 하나님께만 잘하지 말고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서로서로 잘하라.

79.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는 잘 못했다. 오늘날 현실의 자들은 주께는 잘하는데 주가 사랑하고 관심 주는 사람들에게는 잘 못할 때가 많다. 주가 그것을 다 말하지 못한다. 그냥 놔두고 지나갈 뿐이다.

80. 늘 말씀으로 이겨 나가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땅에도 잘하고 하늘에도 잘하라. 이 두 가지의 뜻을 이루면 다 이룬 것이다. 이로써 율법은 끝났다. 이 두 가지를 이루면 성약말씀도 끝난 것이다.

81. 말을 탄 자가 뛰듯이 뛰어라.

82. ‘백마 타고 온다.’는 것은 정말로 백마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시대 말씀을 두고 뛰는 모습이 백마 타고 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는 홍마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탄다.

83. 예수님 때 신약역사로 구약의 휘날리는 예언을 다 성취하고 끝났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 3년으로 끝나 버렸다.

84. 이 시대 역사 당세는 선생님께서 끝난다. 이것으로 신약의 찬란한 예언이 다 끝난다. “공중 휴거 된다. 주로 인해 끌려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미 40년 동안 했고, 나머지 부활기를 통해서 휘날리는 역사가 진행되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85.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이때에 못 하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목숨을 걸어 놓고 해야 된다. 지금은 차가 없어도 서울까지 뛰어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며 할 시대이다. 그 정도로 흥분되어서 휘날리는 역사를 펴야 될 때다.

86. 늘 선생이 탄식하고 울고 짜고 할 때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 줄게.” 하셨다.

87. 10억, 100억, 1000억의 사탄이 다 메시아만 공격한다. 아무리 숨겨도 메시아를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어느 시대든지 똑같다.

88. 사냥꾼은 어미를 잡으러 다니지, 새끼를 쫓아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어미는 목숨을 내걸고 새끼를 챙긴다. 어미 호랑이가 자기만 생각하면 도리어 포수를 잡아먹는다. 그런데 새끼를 챙기다 보니 다치고 총 맞고 절뚝거리고 다니게도 된다. 그런 식으로 역사도 펴 온 것이다.

89. 그러므로 늘 메시아가 구원받기 제일 힘들고, 메시아의 최고 증거자가 그다음으로 구원받기 어렵다. 이 두 사람이 제일 어렵다. 극적인 자들이다. 다른 자들의 어려움은 환난의 바람에 불과하다.

90.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 나왔다. 기어코 역사를 펴서 2000년 역사를 휘날리게 하고, 결국 심판할 자들 다 심판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주는 온 민족, 세계 주권자들이 다 공격했어도 안 죽고 살아났다.

91. 집중적으로 주를 위해 기도하라. 그를 모시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92. 주의 기질을 가지고 뛰어라. 시키는 일을 목숨 걸고 하라. 안 하면 가까이 안 데리고 다닌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로 하늘을 모시고 섬기는 사고와 사상들을 가져야 된다.

93. 기회 놓치고 다시 하려면 한 바퀴 돌아야 된다. 그것도 교육받고서 잘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를 교육해야 된다.

94. 선생은 산에 있을 때 스스로 돌로 때려 가면서 교육시켰다. 머리를 돌로 찧어 대니 예수님이 “그러면 머리 더 나 빠진다. 자꾸 배우고 깨닫고 해야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95. 지금은 천재가 되었다.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머리를 합해도 못 따라오는 머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머리가 되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보내고, 우리 머리에, 뇌 속에 말씀을 보냈습니다. “내가 예레미야 너에게 불을 보내노니,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식히지 말고, 네 머리에서 식히지 말고 달려가면서 전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말씀의 불을 뇌에 던졌으니 식히지 말고, 식힌 다음에 뛰지 말고,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그대로 뛰면서 하루를 참고 견디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삶이 연속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멋있게 뛰고 달리며 영광을 돌리겠으니, 신부들이 하는 것들 중 최고의 것이 뭘고 하니, 신랑을 기쁘게 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사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섬기고, 좋아하며 성령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영영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하며 생명을 이끌어오는 모든 자들, 이미 불을 받고 나간 자들, 말씀의 불을 받고 나간 자들이 뛰고 달리는

데 영영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옥에 있었을 때 “옥에서 나왔다고 해도 일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서 일을 해야 잘되는 것이지. 나오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서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은 퇴비를 하고, 또 많은 군중, 많은 구름들이 섭리의 역사를 막 밀고 나가야 그만큼 되는 것이지,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가르쳐라. 불을 보내라.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전체가 밀어붙여라. 그래야 전체가 잘돼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케 해 주시고. 일하는 이들이 낙심치 말고, 포기도 말고, 안 됐어도 걱정하지 말고, 가정에 무슨 일 있어도 걱정 말고 가라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알았다. 해 줄게!” 해 주셨습니다. “주도 해 주마.” 그랬으니 낙심치 말고 열심히 행하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안 될 때는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또 뛰고 달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게 영육으로 축복해 주시고, 육신도 영혼도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 친구약 성경에서 해 주신 말씀 중 일생 동안 명심할 말씀이다.
2. 하나님이 해 줄 것을 모르니 낙심한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주도 마음대로 못 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3. 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육신이니까 금방 해 버린다. 그러나 ‘낙심한 자, 포기한 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의 때’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도 마음대로 못 한다.
4. 주의 때를 맞추지 않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몸부림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 속에 있는 자, 포기의 처지에 있는 자, 끝까지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 해당되는 일이다. 고로 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5. 하나님은 <정한 날>에 행하신다. 주도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실 때는 마음대로 못 하고, 해도 하나님의 정한 날을 맞출 수가 없다.
6. 하나님이 정한 그날은 주도 시대의 신랑으로서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날이다. 주도 남이 아니라 일체 된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에 해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잔치하는 것이다.
7. 하나님은 정한 날에 주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행해 주신다.
8. 하나님이 원(原)근본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야 주와 같이 행해 준다.
9. 자기 일이 자기 집의 일이고, 자기 일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일이다. 시대 신부들의 일 하나하나가 주의 일이 된다. 주가 구원하고 이끌고 사랑하고 신랑 되어 행하니 주의 일도 된다는 것이다.
10. 주는 전지전능한 근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심부름하는 자이기에 스스로는 못 한다. 구원도 시키고 때에 따라서 도와도 주지만, 하나님이 원조를 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해 주고 돕고 함께해 주신다.
11. 예수님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12. 선생이 해 주려고 해도 스스로 안 되는 일이 많았다. 신기하게 안 된다. 그러면 주까지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13.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관련된 날이 있다. 우리의 날이지만, 하나님이 관련된 날이다. 그날 해가 뜨고 짙게 햇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날에 핵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원하고 바라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14. 휴거의 날도 보면, 하나님은 그날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맞추어서 행하신다.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이 끝난 다음에 구원자를 보낸 그날에 맞춰서 그날 잔치하고 그날 결혼식을 했다.
15. 크고 장성해서 할 일을 다 한 다음, 주를 보낸 날을 휴거 날로 정하고 결혼 날로 정해서 2015년 3월 16일에 했다.
16. 한 가지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맞추면 성경에 있는 수만 가지의 것들을 다 맞춘다. 고로 성경 하나를 이루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17. 절대로 자기 날을 맞출 수 없다. 자기 날, 자기가 원하는 날, 자기가 힘든 날, 자기가 애타는 날로 그 날을 못 맞춘다.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행해 주셨다.
18. 그 날은 '알파'날이자, '오메가'가 되는 날이다. 알파와 오메가가 서로 만난다. 처음과 나중에 맞으면 '원'이 된다. 원은 '영원하다.'는 뜻이다.
19. 하나님이 정한 날에 행하게 되면 영원하다. 그래서 휴거 날, 정한 날에 하나님 뜻대로 맞춰서 행한 자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
20. 지상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날에 행한 자는 일생을 영원하게 끝내 버린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면 더 이상 붓을 댈 필요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 존재하는 것이다.
21. 성경 책도 모두가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해서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 썼다.
22.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해야 영원하고, 끝나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아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가라." 하신 것이다.
23. 하나님이 정한 날, 2015년 3월 16일에 하니까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 버렸다. 그 전날 했으면 못 갔다.
24. 생일날이 그만큼 중한 날이다. 제일 좋은 날이다. 자기가 난 날은 알파요, 오메가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다. 낳아서 기쁘고, 그날 신랑을 만나면 백년해로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니, 하나님이 생일을 그리도 중하게 여기신다.
25. 휴거 날이 생일날인지 전혀 몰랐다. 제일 중요한 날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생일날로 정하셨다.
26. 그날이 그 나라 기후적으로 가장 따뜻하고 좋은 날이다. 겨울 지나고 따뜻한 봄날로 아예 정하셨다. 언제 낳았는지가 귀하다.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보고서 출세도 좌우되고, 여생도 알 수 있다.
27. 하나님이 따지는 것을 볼 때, 최고의 그날이 최고 날이다.
28. 생일날이 생일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자기의 최고 좋은 결혼 날로 하셨다.
29. 성경에서 제일 큰 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휴거'다. 맨 마지막을 '휴거'라고 한다. 휴거가 끝나면 성자도 떠나신다.
30. 성자는 땅의 모든 일을 하러 구약에 오셨다가 구약역사 다 하고 신약역사도 해 주고 마지막 휴거까지 시켜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다. 그 정도로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31. 휴거시키고 그때부터는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역사를 이루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펴며 사는 것이다. 깨지면 다시 할 수도 없다.

32. 생일날이 ‘끝’이다. 그날 하려고 하니 참고 견디고 끝까지 하라. 구약에서 신약까지 ‘끝까지 하라.’는 것은 메시아 보낸 그때까지 견디면, 보낸 날에 메시아가 독수리 날듯이 잡고 난다는 것이다.

33. 우리가 그전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다. 최고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도 십자가 위에서 겪고, 따르는 자는 그를 쳐다보는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며, 환난과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 그 날을 맞았다. 그 날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온다.

34. ‘휴거’라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이루기 전에 성자께서 이미 월명동 예식장을 지으셨다. 큰 예식장은 하나님 대성전이고, 특별히 신부들에게 맞게 예쁘게 3.16 휴거기념관 예식장으로 지어 주셨다.

35. 때는 한두 가지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맞아야 된다.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만인을 위해서 핵 적인 최고 고통의 십자가를 저 주고 죽어 주었다.

36. 그리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휴거 준비를 했다. 회개의 역사, 성령집회를 통해 최고 말씀을 전해 주면서 회개하여 깨끗하게 단장시키는 역사를 했다.

37. 그리고 2015년 3월 16일, 주 보낸 날, 역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날에 모든 천지를 맞춰서 한 것이다.

38. 그때 하나님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지금은 4년 동안 살고 있는 기간이다. 가장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이제는 ‘아기 낳는 기간’이다. 젊었을 때 못 낳으면 못 낳는다. 그래서 생명 역사를 계속해 왔다.

39. 그런데 지금 아기를 못 낳으니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아기 낳아라! 금년도는 아기 낳는 해다! 선교하라! 안 하면 안 돼!” 하고 말씀하셨다.

40. 그래서 순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시는 역사를 펴고 있다. 아기를 못 낳으니 다시 신랑이 신부를 잡고 아기를 낳게 역사하는 것이다.

41. 결국 사랑하면 아기를 안 낳으면 안 된다. 사랑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신부의 책임이다.

42. 어떤 캠퍼스는 선생이 하루 다녀왔는데, 다음날에 1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100명이 임신이 된 것과 같다.

43. 중고등부도 영성캠프 때 밤을 새우며 말씀했는데, “이날이 첫날 저녁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얼마 있다가 모두 10명, 20명씩 전도했다고 소식이 들려왔다.

44.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한 날 행하신다. 절대적인 역사를 맞추시는 하나님이시다.

45. 사람들이 생일날 여행도 가고, 결혼 몇 주년에 여행도 간다. 잔치하는 일로 볼 때는 생일날에 생일잔치를 한다. 생일날 하나님이 챙겨 주시고, 생일날 축복해 주시고, 생일날에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

46. 개인으로 볼 때는 엄마가 꼭 생일을 챙긴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챙겨 주신다. 생일날 엄마는 잊지 않고 챙겨 주신다. 엄마가 낳았으니 관련되어 있고, 본인도 관련되어 있다. 성령이 내조만 하시지 않고 성령이 챙겨 주시고 성령이 해주신다.

47.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하시고 그날 행하신다. 이것을 절대로 알고 모든 전체 인봉을 떼 뿔으니 이제는 행해야 된다.

48. 생명이 시작된 날이 그렇게 귀하지 않느냐?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으니까 할 수가 없다. 너라는 존재가 생긴 날, 사주팔자가 다 결정된다. 사주팔자는 ‘때’를 보기 위해서 따진다.

49. 선생은 3월 16일에 태어났다. 계절로 볼 때 확 꽃이 피는 시기이고,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때다. 겨울의 추위가 끝난 때다. ‘추위’ 하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떠오르고, 하나의 인생의 어려운 고통들을 표현할 때 ‘겨울’이라고 한다.

50. 선생이 태어난 때는 4시이고, 띠는 ‘닭띠’이다. 주에 대해서 “닭띠를 가진 자가 정도령이다.” 하며 예언한 자들이 많았다. 또한 태몽으로 ‘용꿈’을 꾸었다.

51. 조은목사는 선생보다 날짜로 3일 먼저다. 그리고 태몽으로 ‘머리 없는 몸만 가진 용의 꿈’을 꿔다. 고로 선생은 “너는 혼자서는 못 산다. 그러면 머리 없는 용이라 얼마나 보기 싫으냐? 머리는 나, 몸은 너다. 그러면 키 큰 자가 몸이 되니 좋고, 몸이 여자라면 신부가 되니 좋다.” 했다.

52.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맞아야 한다.

53. 휴거 날도 3일 전에 성자께서 은밀히 “나, 간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 “생일날 간다.” 이는 곧 승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성자가 가면 신부들이 따라가니 ‘휴거 날’이라는 것이었다.

54. 조은 목사 생일날 아침에 전해 주었는데, 그날 조은 목사가 면회를 오는 날이었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 못 오고 범석 목사가 와서 그에게 전해 주었더니 못 알아들었다. 말하는 것이 전체 녹화가 되기 때문에 ‘휴거 날’이라고 말을 못하고 “성자 승천하신다.”라고만 전해 주었다.

55. 그래서 부활주일에 다시 휴거 날을 확실히 얘기해 주었다. 그때는 전체가 와서 인식을 했다. 그날 알아주나 몰라주나 영들이기 때문에 다 모아다가 휴거시킬 자들은 시켰다. 육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영들은 다 알아듣기 때문이다.

56. 어떤 자는 육은 휴거 날을 몰랐는데, 영계를 보니 자기 영이 휴거된다고 드레스를 입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57. 먼저는 신령한 자이니 먼저 휴거될 영들은 다 되었으되, 육은 모르니 다음 부활주일에 가르쳐서 2만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 성자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어 준비된 자들, 때가 된 영들은 다 부르신 것이다.

58. 3.16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통보해서 영은 알고 육은 잘 몰랐다. 아는 사람은 육도 기뻐하며 생일잔치로 모임을 했다. 생일잔치하면서 휴거 역사가 같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큰 날이었다.

59. 조은 목사를 3일 전에 미리 태어나게 하셔서 휴거 날을 예비하게 만들었다. 3일 동안 휴거 전야제처럼 하며 시대의 하와 먼저 쟁겨 역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60.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죽는 날과 나는 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를 이룬다.

61.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절대시하는 자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날이 복 있는 날이다. 조금 일찍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정한 날에 죽었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62. 선생의 음력 생일은 2월 3일이다. 선생은 하나님이 주신 날을 생각하면서 혼자라도 이 세상에 내가 온 날이라며 꼭 챙긴다. 선생은 생일에 꼭 큰일을 한다. 그림을 그리든지, 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한다.

63. 신부와 연관된 일은 신랑도 연관되어 있고, 신랑이 연관된 일은 신부도 연관되어 있다. 꼭 보면 하나님이 그때에 챙겨 주신다.

64. 무엇을 해 주더라도 모르면 감탄치 못하지만, 깨닫게 되면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하고 신기하고 웅장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궤죄죄하게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된다.
65.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하기 위해서 그 정한 날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3.16은 영들이 휴거되는 날이다. 아무 때나 안 한다. 성장된 자들이 또 휴거 역사를 이루는 날이다.
66. 휴거는 절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을 절대 확실히 듣고 완벽하게 믿고, 회개를 깨끗이 확실하게 해야 된다. 땅의 신랑, 하늘의 신랑을 확실히 알고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휴거 역사가 이루어진다.
67. 휴거된 자는 차원 높이는 휴거, 더 좋은 휴거를 항상 해마다 해 왔다. 이미 휴거된 자는 단계를 못 높이면 안 된다. 작년 수준으로 또 휴거 날을 맞는다면 제자리 역사다.
68. 자기 차원을 높이는 휴거를 꼭 이뤄야 된다. 더 깨끗이 하고, 더 뜻을 펴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뛰고 달리면 더 높은 휴거가 이루어진다.
69. (하나님) 이제는 너희들이 생명 탄생을 못 시키면 나의 사랑이 헛될까 하노라.
70. 주를 육신으로 직접 보는 것만 생각하는 사고를 고쳐야 한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매일 주를 통해 말씀 하시는 것이 실제 본인의 육신 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라.
71. 바른 생각을 하고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확확 들어간다.
72. 지금 분명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도 뒤집어지지 않으면 어느 때는 화가 난다. 하나님은 “명청하면 안 뒤집어진다.” 하셨다. 미련하면, 모르면, 노력을 안 하면, 휴거가 안 되면 안 뒤집어진다.
73. 지난밤 꿈에 보니, 주는 어디에 있어도 할 일이 너무 커서 열심히 하며 된다. 역시 안 될 수 없는 입장이고, 앉았어도 뛰어야 할 입장이었다. 하나님도 땅도 기다리고 있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한 것을 듣고 깨닫고 영광을 돌리며 가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들로서 행할 것이 있다면 생명의 탄생이 아니냐? 결혼한 자는 생명의 탄생을 꼭 이룰 것이고, 생명을 기르는 일을 꼭 할 것이고, 관리할 것을 꼭 할 것이고, 양 떼와 소 떼를 부지런히 돌보면서 먹일 것을 먹여야 젖도 나고 많은 역사가,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와 민족과 세계에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2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잘해야 된다.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2. 과거 역사를 볼 때, <하나님>과 <성령>과 멀리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잘하려 해도 안 되었다.
3. 하나님은 “너희들끼리 해서 잘 안 됐다.” 하셨다.
4. 나의 생각으로 최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구상을 받지 않았을 때는 형편도 없는 구상으로 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구상>을 받으니 모양과 형상과 그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함이 완전히 달랐다.
5.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야 최고로 더 이상 없이 할 수 있다.
6. 항상 <하나님의 구상>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상은 ‘주’를 통해서 온다.

7. 지체는 머리가 하는 대로 따라간다. 따라 하는 자들은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 한다. 지체로서는 달리 더 큰 것을 알 수가 없다.
8. 머리 위에 있는 지체가 없다. ‘손’도 ‘발’도 ‘아름다운 과일’도 ‘나무’도 머리 위에 있지 않다.
9. 지체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니 <머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10. 성령은 “할 일을 안 하면 못하는 것이다. 안 하면 빼기가 아니냐?” 하셨다. 빼는 것은 제하는 것이니 제일 무섭다. 이왕 할 바에는 ‘곹하기’를 해야 한다.
11. ‘못 할 것을 한다.’는 것은 <기적>이다.
12. 과거에 선생이 스스로 한 것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했는데도 웅장치도 않고, 아름다움도 없고, 신비성이 하나도 없었다. 무조건 <하나님의 구상>이 나와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신기하다.
13. 하나님의 구상, 성령의 구상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하는 일은 늘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14. 돌은 그 자체로 보석이다. 특히 월명동에 있는 돌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보석이다.
15. 하나님도 하나님이 해 놓은 것을 자랑하며 보여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선생은 그것을 보며 감탄의 감탄을 하며 너무 멋있다고 화답한다.
16. 20 더하기 20은 40이지만, 20 곹하기 20은 400이다. 이처럼 <곹하기>는 엄청나다.
17. 사람은 무엇을 주더라도, 줬을 때 그리도 기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준다. 이와 같이 여자도 자기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사람과 결혼한다.
18. 나무를 사러 갔을 때 사장이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저분은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시냐?”라고 물었다. 이에 “나무가 천 리에 있어도 쫓아가시는 분이다.” 하니, 나무 주인은 그런 사람에게 나무를 팔고 싶다고 했다.
19. 하나님이 만든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 주인이 된다. 시장의 물건도 결국 좋아하는 사람에게 팔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사 가게 된다.
20. 성지 땅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야심작’뿐만 아니라 ‘월명동 지역 자체’가 하나님이 내놓을 만한 작품, 야심작이다.
21. 이 시대 하나님이 내놓을 만한 작품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다. 그 다음은 ‘따르는 자들’이 작품이다. 대상에서 하나를 친다면 시대 하와다.
22.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할 말을 하지 않으시면 할 시간이 없으시다.
23. 하나님은 깨달은 자에게 진행하신다.
24. 하나님의 작품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다. 하나님이 구상할 때 크고 웅장하게 구상하신다.
25. 옛날 세례 요한은 자기 구상대로 해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초한 곳으로 예수님이 간 기록이 없었다. 전초의 사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6.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았다. 고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

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다. 이벤트 하듯이 계획해서 만들어 놓고 주를 그 길로 가게 하지 못했다.

27. 사랑하면 그 길로 간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사랑치 않으면 안 간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주며 가지만, 사랑치 않는 자는 계명을 안 지킨다.

28. 세례 요한이라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발판을 깔아 줘서 그리로 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 길로 가는 ‘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알게 된다.

29.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웅장하고 신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30. 잔디성전 옆의 돌 조경은 7~8명의 사람이 죽을 뻔했던 장소다. 산을 더 끊을 수가 없어서 절벽으로 쌓은 곳이다. 돌을 다 쌓은 후 선생이 순회 가다가 연락해 보니, 비 오는데 꽃을 심고 있다고 해서 전부 돌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사람들이 내려와서 미처 운동장을 다 지나가지 않았을 때 돌들이 무너져 내렸다.

31.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같이 목숨을 내걸고 돌 작업을 해 왔다.

32. 선생도 잔디성전 옆의 돌 조경에서 죽을 뻔했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8m짜리 돌이 넘어지면서 선생이 포클레인 위로 그대로 내려 뛰었는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살았던 곳이다. 그때 머리만 부딪혔어도 죽었고, 전날 했어도 죽었다. 신이 되어 피하도록 하나님이 살려 주셨다.

33. 멋있게 아름답게 좋게 잘 구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도 재미가 없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도 구상을 멋있게 잘해야 멋있게 재밌게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메시아와 살아도 재밌게 못 산다.

34. 구상을 멋있게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상하지 않으면 ‘곱하기’가 될 수 없다. 아름답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고 멋도 없고 완전히 형편도 없다.

35. 하나님이 만든 자기라는 작품이 안 늙게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해야 된다.

36. 70세가 넘어가면 확확 늙기 시작한다. 80세에 들어가면 합죽하니 형상이 변하고 늙어서 다른 길을 가야 될 입장이다. 이미 같은 사회에서 생활을 못 할 정도다. 시대가 달라서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울리지 못한다.

37. 같은 식구들끼리라도 시대 차이 때문에 대화를 못 한다. 그러나 우리 섭리인들은 시대 차이가 있어도 같은 교리 말씀을 들으며 가니 사실상 시대 차이를 못 느낀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어서 늘 하나님과 같이 명절 쇠고, 성령과 같이 명절 쇠고 그 구상도 하고, 주와 같이 명절 쇠고 구상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오고 가는 길에 명절 때만 되면 그 좋은 곳에 오고 가다가 다치고 차 사고 나는데, 늘 행하는 우리 섭리인들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서 명절 때 사고가 많이 줄고도 줄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내일도 지키시사, 명절 때 집에 가다 부모 만나러 가다 죽고 또 자녀 만나러 가다 죽고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늘 살피주시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도 타이완도, 중국도, 아시아권에 명절이 같이 있으니 모두 하나님의 즐거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모두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살피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후히 받으시옵소서. 지구상의, 아시아권의 모든 명절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유럽권에서는 그 나름대로, 육신의 명절은 아니어도 주를 맞은 자들에게 명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를 만나 늘 기쁘고 즐겁고, 애인 만났으니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한 기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가장 큰 것이 무엇이나.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하는 것이다.
2. 어떤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예비자가 있어야 된다. 이를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 격 역사'다.
3. 세례 요한은 별로 한 것이 없어서 내놓을 것이 없으나,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반드시 예비케 하고서 움직이셨다.
4.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줘서 깨우쳐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전에 전해 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예수님은 먼저 예비하게 만든 것이다.
5. 어떻게 예비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대로, 입력한 대로 바로 얘기했다. 예수님과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던 것이다.
6.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사람이라도 조직을 했다. 하나는 내적 조직이요, 하나는 외적 조직이다.
7. 예수님은 육신이니까 육신에 해당되는 것을 해 주는 자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구원을 주려고 왔으니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야 한다.
8. 두 사람이 자동적으로 평소에 하는 삶의 터전에서 준비한 것이다. 사람이 왔으니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때가 되면 식사 대접을 해야 하고, 사람이 왔으니 상대가 되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9. 조직이 잘되어 있었기에 그 터전과 발판 위에 예수님은 그 집으로 가셨다.
10.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간 것은 '복음을 퍼러 갔다.' '사랑해서 갔다.' 등 여러 가지가 해당되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마음이 끌려서 간 것이다.
11.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말씀같이 주님은 준비된 대로 가시고, 준비된 대로 하신다.
12. 하나님도 예비된 대로 이 땅에 역사를 펴 오셨다. 유대 종교는 예비되지 않아서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곳으로 하나님의 발걸음이 가지를 않았다.
13. 하나님의 발걸음을 실제 보려면, 메시아의 발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14. 가인과 아벨을 볼지라도, 아벨은 보다 하늘 편으로 준비되어 하늘 편에서 역사를 폈고, 가인은 보다 육적으로 역사를 펴게 만들고 행하게 하셨다. 그 질대로, 양대로, 모양대로 사진도 찍히고, 행함도 이뤄진다.
15. 두 명이 있으나 세 명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을 하듯이, 섭리사는 엄청난 군중이 있고 구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조직도 있고, 나라 단위 조직도 있고, 교회 단위의 조직도 있어야 한다.
16. 나라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께서 감독이 되어 행하시리라.
17. 땅에 있는 것은 육신을 쓰고 주관해야 된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육신으로 직접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육신이 세상에서 끝나고 영이 와서 다스릴 때는 영의 세계 주관권에 있는 자들만 쉽게 다스리고, 육적인 자들은 육적인 사람을 통해서 감동시켜서 다스렸다.
18. 지금 시대는 육이 살아 있으니 육으로 직접 말한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다스려 나간다.
19. 증거자가 해야 되고, 잘 본 자가 해야 되고, 가장 많이 본 자가 해야 된다.

20. 적은 수라도 조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1명에서 축구를 못 하면 9명으로 하는 것이다.
21. 가정에서도 조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각자 담당해서 나가면 그 가정은 통솔이 되는 가정이다. 그러면 주께서도 수시로 강림하시고, 주의 육신이 안 나타나도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신다.
22. 조직이 안 되면 상대를 조질 수가 없다. 사탄을 조질 수가 없고, 삶을 조질 수가 없고, 삶을 풀어 나갈 수가 없다. 혼자서는 아무리 해도 힘들다.
23. 우리는 '사자 가족'이 아니다. 사자는 어린 새끼와 수놈은 그냥 두고서 암놈 혼자만 사냥한다. 그런 조직이 아니라, 모두가 오르렁거리며 사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은 사자보다 '호랑이'를 더 좋아한다. 호랑이는 그만큼 활동량이 크기 때문에 사자를 이긴다.
24. <몸>은 '육신'과 '혼'과 '영'으로 조직되어 있다. 마음과 생각은 육에 속해서 영과의 매개 역할을 한다.
25. 밤에 잘 때 꼭 혼의 상태를 보게 기도하라. 혼을 못 보고 영을 못 보면 기도 생활을 안 한 것이다.
26.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조직을 해 두시고, 세상을 조지며 다스리며 주관하며 살아가게 만드셨다.
27. 선교할 때 조직이 안 되면 선교가 안 된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하게 하며 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조직되지 않으면 안 된다.
28. 부지런히 양 떼와 소 떼를 다스려라.
29. 매일 자고, 매일 먹고, 매일 삶의 세계에서 행해야 되듯이 연속되게 뛰고 행하여라.
30. 사람이 일을 해 보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간단하다. 일을 해 본 사람은 큰일도 작다고 하는데, 안 해 본 사람은 작은 일도 크다고 한다.
31. 자기 앞에 볼이 오면 순간순간 차야 되고, 패스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일을 척척 하되 조직해 놓고 하라.
32. 마리아와 마르다는 두 명인데도 조직이 잘되었다. 세 명은 '세 명 조직', 네 명은 '네 명 조직'으로 하면 기막히게 잘하여 그 팀을 이길 자가 없다.
33. 라인 안에 들어온 사람만 데리고 하면 된다. 없으면 올 때까지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서 하면 된다.
34.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쓰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믿음으로 살자." 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보면 그때그때 옆에 있는 사람을 써 버리셨다.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35.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너무 신기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과거의 일을 깨달으면 너무 신기하다. 삶 가운데 신비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일이 많다.
36. 한 사람이 4천만 원을 들여 수술했는데 어깨가 아직 안 낮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 주가 손대니 현장에서 팔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르고 주를 부르며 팔을 조금씩 더 올리는 연습을 하라."라고 말해 주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탄, 마귀가 손을 붙잡고 있으니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기도해 주었다.
37. 하나님의 구상하실 때 순리로 쉽고 멋있게 구상하신다. 주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38. 하나님은 성령과 같이 수술해 주시고, 천사들도 수술한다. 아픈 자를 직접 손대어 영적 의학에 의해 수술해 준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지난날을 깨닫게 하고 알고 확인되게 했으니, 신기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웅장한 일들이었습니다. ‘아~ 그때 이러해서 이렇게 됐구나. 역사가 가면서 풀리고 확인되니까 풀리는구나. 시대 역사도 확인되면 결국 풀리리라.’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풀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한 일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알고 세밀하게 알고 역사를 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고, ‘혹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갔을 때, 그때가 아닌가?’ 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 전해 줬는데, 나에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제대로 알려면 모든 것을 직접 만나서 서로 주인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주필승 목사는 말하길, “하나님, 나도 세례요한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때 기도했다는데, “너는 세례 요한이 안 된다. 너는 고욤나무다. 고욤나무. 그러니까 주와 접붙여서 그런 역할 하도록 하라,” 그랬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해 나가게 해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두 감람나무는 내적, 외적으로 서서 이미 하나님 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영하여 우리가 항상 태양같이 빛나게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같이, 주와 같이 뛰는 역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옵니.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배하며, 조상들에게 경배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께 우리 섭리의 전체가 경배하고 경배하고, 온 민족과 세계가 경배하고 경배하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는 크시고 그 전능하심과 그 웅장하심으로 온 세계 모든 자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존재자시니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민족과 세계에서 떠나고 다 벗어날지어다. 쫓아내 버립니다. 벗어나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예비해 놓아라. 그리고 준비해 놓아라.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주님을 못 맞게 된다.
2. 예비한 자는 개인이라도 주를 맞을 것이요, 예비하지 않은 자는 교회라도 맞을 수가 없으니 그의 길을 예비해 놓아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 놓아라.
3.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준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다. 시대 보낸 자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가고 하나님의 역사는 평화의 세계로 이상의 세계로 가지만, 준비를 안 해 놓으면 하늘 역사를 맞을 수가 없다.
4. 하늘을 맞은 섭리사도 마찬가지다. 맞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루하루 역사를 펴 때도 예비한 곳에는 역사를 펴지만, 예비치 않은 곳에는 실제로 가서 역사를 펴지를 않는다.
5. 대개 보면 주를 만나려고는 하는데 예비를 안 해서 만나지를 못한다. 본인들은 예비했다고 하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실제 주를 모시고 살려면 목숨을 걸어 놓고 예비해야 된다.
6. 무엇이 부족한지 얘기해 줘도 안 한다. 말했을 때 목숨을 걸어 놓고 바로 해야 된다. 안 하면 큰일 난다.
7. 항상 지도자의 잘못이다. 교회 지도자는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예비치 않으면 그 교회는 주를 실제로 보는데도 못 깨닫는다.
8. 세례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다. 요한만 잘했으면 됐을 것이다. 요한이 점진적으로 주를 가까이 하는 만큼 계속 깨우쳐 줬을 것이다. 그러나 멀어졌으니 모르게 된 것이다.
9. 수학의 세계든, 과학의 세계든 자꾸 접할수록 더 알아진다. 가까이할수록 계속 알게 되고, 멀리할수록 자꾸 모르게 된다.
10. 세례요한은 ‘매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11. 주를 봤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는 매일 다르게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같이

하지 않고, 오늘은 새롭게 한다.

12. 가령 어제 산을 갔다면, 오늘은 바다를 가고, 내일은 육지를 가면서 완전히 다른 역사를 펴 나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루하지 않고, 그 주관권 내에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펴다가 그 주관권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세계 역사를 또 펼친다.

13. 거기에 해당되는 역사를 펴야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된다.

14. 주를 잘 알지 못하니, 가까이하면 너무 일반적인 사람으로 대하고 멀리하면 너무 모르는 것이 섭리사의 실정이다. 고로 주를 보고 싶어도 잘 못 보게 하고, 일단 다른 세계로 역사를 돌리면서 갈 때가 있다.

15. 말씀을 했으면 꼭 행해야 된다. 안 하면 전체가 손해 가고, 본인들의 손해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손해가 가는지를 모른다.

16. 어떤 사람은 설교도 듣지 않고 주를 보기만 해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된다. 만 번을 기도하는 것보다 주를 직접 보는 것이 더 귀하다.

17. 구약시대에서 4000년 동안 신약시대를 기다린 것보다 신약시대에서 한 번 예수님을 맞은 것이 더 크다.

18. 예비해야 주를 맞는다. 항상 예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가 오리라. 이는 시대를 맞기 전의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시대를 맞고 주를 맞은 자에게도 항상 적용되는 말씀이다.

19. 준비하고 예비한 자에게 역사는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가고 있다. 준비한 자에게 자꾸 간다.

20. 준비한 자에게만 역사가 이루어지고, 준비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21.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안 가셨을 것이다.

22. 어떤 교회는 열 번을 가도, 스무 번을 가도 준비를 안 해 놓는다. 그러면 역사가 가기는 가는데 준비를 안 한 대로 뺏긴다. 개인도 혜택을 못 받고, 섭리역사에도 혜택이 안 간다.

23. 준비한 곳으로 천 리라도 가야 한다.

24. 세례요한은 자신이 준비가 안 되니 시대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요한이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었다면 시대를 준비시켰을 것이다. 결국 사명자가 하기 때문이다.

25. 세례요한이 주님께 딱 붙어서 역사를 폼으면, 그 시대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조건을 세운 사람들은 그 역사의 길을 똑같이 갔을 것이다. 신약시대 때 요한을 따라서 올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한이 안 오니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하며 물어보기만 했다.

26.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오리라고 한 그가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하며 시원찮게 얘기했다. 제대로 몰랐다는 것이다.

27.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는 정도로만 얘기했다. 그러나 확실하게 얘기했으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았을 것이다.

28.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면 처음에 맞은 1세들이 새로운 시대를 증거해야 한다. 자체적으로는 1978년부터 섭리역사를 시작할 때에 섭리 안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모두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나가게 되었다. 섭리 전반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그로 인해 그 주관권의 자들이 오지 못하게 되었다.
29. 그 후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내적으로 증거자들이 생겼다. 그 증거자들 중 핵심적인 자인 <조은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 역사는 이루어졌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연결되어, 전에 있던 자들과 뭉쳐서 휴거 역사까지 맞이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고 끝나게 되었다.
30.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하고, 마이크가 없을 때는 입으로 증거한다. 절대적인 중심자가 있어도 그때 그때 증거자들이 있다. 스스로 모든 개인들이 증거를 해 나간다.
31. 누가 되었던 선생을 아는 자들이 증거를 한다. 그러나 말을 잘해야 되는데 속 시원하게 증거를 못 한다.
32. <증거>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엄청나게 배워야 되고, 하늘 앞에도 엄청나게 행해야 된다. 시대 증거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
33. 시대를 증거하는 데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34. 선생이 있든 없든, 증거를 잘하면 그 증거를 받고 생명이 바로 와 버린다. <증거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 역사도 펴 나가고 전도도 된다.
35. 전도한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잘 증거하면 오고, 증거를 제대로 못 하면 안 온다. 증거가 그렇게 크다.
36. 말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말을 좋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말을 잘해야 전도가 된다.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
37. 말도 잘해야 되고, 말을 듣는 자들도 말귀를 잘 알아듣고 깨달아야 된다. 모든 인간에게 각각 책임이 있으니 한쪽 만으로는 뜻을 펼 수 없다.
38. 선생이 말할 때 심각하게 듣지 못하면 자기 사명이 자꾸 바뀌어 나간다. 무엇을 하든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 놓고 해야 된다.
39. 선생은 운동을 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40. 하려거든 확실히 해야 된다. 증거를 제대로 하라. ‘어떻게 증거할까? 무엇으로 증거할까?’하며 하루 종일 연습해야 된다.
41. <그의 능력>을 증거하고, <성서에 나온 것>을 증거하고, <때>를 증거하라. 의문을 다 풀어 주어라. ‘추배도’를 통해서 풀어 주고, ‘격암유록’을 통해서 풀어 주고, 각종 것을 풀어 주어라.
42. 증거해 주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데, 증거를 제대로 못 한다.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이다.
43. 초등학교 과목은 6년을 배우면 100% 알아야 된다. 중학교를 가면 기본적인 학문을 알아야 하고,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면 거의 다 알아야 한다. 대학교가서 배우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대학을 나와서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44. 선생은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도 일반 사람이 공부하듯이 하지 않았다. 그때 문학에 대해서 식견을 갖추며 알게 되었다. 문학을 공부하며 성서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45. ‘그 나라의 처지가 다르겠지만, 문학적으로 왜 이렇게 썼을까?’를 생각하며 성서의 모순을 잡아내고 성서의 기록에서 잘못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46. ‘문법에서는 착오가 있으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착오가 없으면 된다.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근본만 잡고 가면 된다.’ 하며, 시대를 판단하고 성서를 판단하며 가기 시작했다.
47. 성서는 다 계시론이 아니고, 다 근본의 영감의 말씀이 아니다. 시대마다 보고 쓴 것이 다르고, 민족성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른 부분도 있다.
48. 우리 민족이라면 성서 해석을 다르게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빵을 먹고 산다 했지만, 우리나라는 떡을 먹고 산다고 써 났다. 이스라엘은 그 후로 1000년, 2000년을 갔어도 떡을 먹는 역사가 없었다.
49. 문학자들은 한글 공부는 많이 했어도 글의 흐름의 박사는 아니다. 문학박사라도 선생과 같이 글을 많이 쓴 사람은 없다. 문학자라도 책 한 권도 못 쓴 사람도 많다.
50. 그때그때 조리 있게 확실하게 모순 없이 말을 하라. 말을 아무리 잘해도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해도 사실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
51.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가 보니 고욤나무였다.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는 고욤나무가 감나무와 비슷할 수가 없다. 모르고 믿고, 모르고 가서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것도 많다.
52. 행실을 잘하라. 행실을 잘 안 하면 눈에 잘 보이는 사람이라도 인정을 못 받는다. 한다고 해 놓고 그 순간만 해 버리고 마는 사람들은 결국 눈에서 벗어나게 되어 눈에 안 띈다.
53. 누구든지 예비하고 준비하라. 주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을 본다. 예비하고 준비치 않으면 하나님을 못 본다.
54.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주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55. 증거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바른 증거를 해야 된다.
56. 항상 문제를 풀어 나가고 시대를 풀어 나갈 때, 말로 풀어 나가고 행실로 풀어 나가는 것으로 엄청나게 운명이 좌우된다.
57. 선생이 무슨 일을 해 봐도 장단점이 있다. 조금만 잘하면 단점을 없앨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할 때가 너무 많다. 꼭 해야 된다.
58. 모든 교회는 각 지역과 개인까지 준비를 해 놓고 주를 맞아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는 가지 않으신다. 혹여 가더라도 그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없다. 준비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간다.
59. 주가 나타난 것을 예사롭게 여기지 말라. 그곳에 꼭 기도받을 자가 있었고 직접 고침을 받을 사람이 있었으나, 그냥 지나가기에 놔두었다.
60. 지금은 신부들이 쫓아다니고 따를 때다. 2015년 휴거의 때가 지나간 지 오래되었다. 2019년이니 4년이나 뒤떨어진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61. 예수님 시대에는 지붕을 뚫고 와서 병을 고쳐 달라고 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가는 골목에 앉아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함으로 고침을 받기도 했다.

62. 주를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다.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고 뜻을 남기는 자들에게 간다.
63.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할 때는 엄청난 것을 해 나간다. 순간순간 뜻을 펴야 된다.
64. 많은 사람을 두고 볼 때, 개인의 책임 분담을 못 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냥 두면 거의 신앙이 죽는다. 그러면 아쉬운 것이다. 민족도, 세계도 그러하다.
65. 끝까지 열심히 하는 세계로 역사는 흔들고 간다. 고난을 받고 고생되어도 전체 역사로 하나님과 주의 뜻은 편다.
66. 섭리사를 나가서 곤고함 속에,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우리는 모른다. 그 겪는 사람만 안다. 이와 같이 이상세계로 온 사람만 이상세계를 안다.
67. 섭리사의 사람들이 가고 있어도 천층만층으로 가고 있다. 엄격하게 영계를 봐도 육계로 봐도 천층만층의 세계로 가고 있다.
68. 지금의 문화는 옛날보다 1000배 이상 발달되었다. 환율을 볼지라도, 땅을 볼지라도 시대적으로 40년 전보다 4000배 이상 발달되었다. 똑같이 4000배나 발달된 세계에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발달된 터전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신앙 세계도 똑같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사람들은 4000배, 5000배를 잘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시대에서 그저 살고 있다.
69. 새 시대를 맞은 사람들은 예비하고 준비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살며, 개발하고 자꾸 만들어서 그와 같이 된 것이다.
70. 시원찮은 사람들은 크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단계가 ‘나의 운명이구나.’ 할 수밖에 없다. 개인도 처음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을 때 빨리 듣고 행했어야 했다.
71.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다. 운명이 바뀌기 전에 하라. 자기 운명의 날이 오고, 자기 때가 오면 먹는 것과 입는 것, 자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간단하게 해결하면서 막 뛰어야 된다.
72. 선생은 가는 곳마다 진수성찬도 안 먹고 목적을 위해서 정신 못 차리게 된다. 왜? 3000배, 4000배 거둬들이기 위해서다.
73. 보고 듣고 무섭게 배워야 된다. 말씀은 같다. 중학생들에게 증거했을 때 받아들인 것은 그룹의 회장들, 정치인들 역시 똑같이 받아들인다. 아이가 먹고서 효과를 봤으면 어른도 효과를 본다. 겨우 자기 수준으로 증거하지 말고 기왕이면 다홍치마이니 크게 해 나가라.
74. 조은 목사도 제대로 가르쳐서 이렇게 컸다. 울면서, 혼나면서, 또 배우면서, 노력하면서 지독하게 했다. 배워서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어 특별히 오늘은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주를 맞으라. 그리해야 너희도 좋고 주도 좋고 나 하나님도 좋고 성령도 좋다. 모두 말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건 건망증이다. 신앙의 건망증이다. 잊어버리지 않고 즉시즉시 행하라. 시간 지나면 뇌에서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이는 마치 테니스를 칠 때, 공이 오면 즉시즉시 쳐야지, 지나가서 치면 만 번 쳐도 다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때그때 행할 것을 행하는 이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원하고, 온 민족과 세계 전체 증거자들이 세밀하게 하고 증거자의 증거를 받으면서 이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증거자가 어떻게 증거하는지 너희는 보지 않았느냐? 증거를 어떻게 하나 보라.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고, 또 배워서 증거하고, 또 의논해서 증거하고, 이것을 증거해 달라고 하면 이것을 증거한다. 이런 자들의 증거를 받으면서 배우고 행하라.” 했습니다.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증거자 이들은 역시 그 하는 것을 너무 모르고 가르쳐 줘도 모르고 있으니 깨닫고 행하게 해 주시고, “행치 않는 자는 그늘막에서 빨리 나와라. 안 나오면 열차가 지나간다. 열차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똑같다.”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이들이 앉고 서

고 뛰고 달릴 것을 확실히 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이 충만하게 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돼서 주인인 주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맞춰 감이 이상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께 허락받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평강과 의를 부어 주니 온 민족과 세계, 아시아, 유럽, 각 나라들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따로 있고, <주>를 증거하는 자가 따로 있다.
2.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그 보내신 자>요, <시대의 주>요, 또한 선지자 때는 <선지자>요, 사사 때는 <사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깨닫고 사명 받고 알고 사는 자들이 증거한다.
3. 삼위일체는 그 보낸 자가 아니 그에 따른 것을 증거하고 말해 주고, ‘어떻게, 왜’ 그러한지 모든 사연을 말하며 증거한다.
4. 두 증인 가운데 <내적 증거자>는 성령으로 증거하며 가르쳐 주는 자다.
5. 주의 행하심을 보고 깨닫고 확신한 자가 증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시대를 따르는 자들 역시 주를 증거하며 말해 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으니 말해 준다.
6.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들이 증거를 할 때는 사탄들이 손을 못 대고, 증거를 마쳤을 때는 사탄들이 손을 댄다. 증거를 계속해야 되거니와, 증거를 못 할 때도 있다. 그때는 사탄이 증거하는 자를 칠 것이요, 증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며 따르는 자들도 괴롭게 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7. 그때는 ‘십자가에 내어 주는 때’와 ‘고난의 때’를 말하며, 가장 큰 때는 ‘십자가에 주께서 못 박히실 때’다.
8. 그때는 증거자들이 보고 듣고 할 것이 없다. 주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그를 못 보고 표적도 기적도 못 보니 증거할 수 없고, 또 내적으로 증거하는 주도 그때는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행하므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
9.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사자들이 나와서 그 증거자들을 괴롭히더라.’ 했듯이, 십자가를 졌을 때 증거자들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법적으로도 괴롭히며 고통을 받게 했다.
10. 우리 시대에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후대에는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성경에 기록해도 요한계시록 11장과 같이 간단하게 몇 줄 기록하고 끝나기 때문이다.
11. 당세의 때에는 엄청나게 행하며 가고 있다. 그러나 기록은 글로 표현한 것이기에 장엄하게 기록해 놓아도, 보지 못하는 만큼 현실감이 없으니 실감이 안 난다.
12. 베트남전에 관한 것도 글로 보면 별로 실감이 안 난다. 총 소리도, 폭탄이 터지는 소리도 다 기록을 못 하고, 실감 있게 전할 수 없고, 시체가 늘비하다 해도 보이는 것이 아니니 실감이 안 난다. 이것을 보다 이상적으로 전달하려면 재현하는 영화를 만들고 화면을 만들어서 보지만, 그 역시도 실감이 덜 난다.
13. 현실감은 당세가 최고다. 고로 당세에 직접 볼 때 뒤집어진다. 그때 보고 깨닫지 않으면 힘들다. <현실이 얼마나 중한지>는 결과를 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14. 현실을 본 자들은 바로 같이 움직이니 그 움직임이 크다. 그러나 현실을 보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들은 감동도, 감화도, 충격도 적다.

15. 주가 와서 다닐 때는 마치 나침반이 가면 쇠붙이가 회오리바람 치면서 팔려 가듯이 그 힘에 팔려 간다. 그러나 글을 보고서는 감동을 받아야 팔려 간다. 현실감이 없고 조용하다.
16. 주가 나타나면 구름 떼같이 순식간에 모여들고, 말씀을 듣고 행하고 돌풍 치는 역사가 현장에서 막 일어난다. 그러나 이를 못 보는 사람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17. <주>만이 그 현실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고, 얼마나 큰지를 안다. 능력이 나가고 권세 있는 말이 나가고 하나님의 감동이면 감동, 실체면 실체, 말씀이면 말씀이 그를 통해서 엄청나게 나간다.
18.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가 있어도 가서 전해 줄 때와 주께 와서 같이 대화를 할 때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다.
19. 주를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며 “주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주가 오면 휴거도 해결된다. 주가 오면 실제 행하는 것들을 행할 수 있으니 휴거가 이루어진다.” 했다.
20. 주가 행해야 대상이 되어서 같이 행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끌려가서 홀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21.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행하는 것과, 보이지 않아서 그 말하는 것이 글로 전달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
22. 증거도 직접 보고 증거하는 자와 듣고서 증거하는 자와 글로 전달받고 증거하는 자는 차이가 많다. 고로, 증거하는 자들이 보고 듣고 증거하면 된다.
23. 옛날 사람들은 증거를 하되 옛날의 것만 증거한다. 지금의 것은 보지 못했으니 증거하지 못한다.
24. 옛날에 행한 것을 보고 전해 주면 그 증거를 받고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을 상상하며 듣는다. 그 역시 현실을 보여주는 생중계가 아니니 들어도 약하다. 그러나 주가 있는 곳은 그렇게도 현실감이 있고, 그렇게도 크다.
25. 겨울에 불덩어리가 있으면 거리에 따라 그 위력이 전달이 된다. 멀면 먼 대로 미지근하게, 가까우면 뜨겁게, 더 가까우면 타면서 전달된다. 이와 같이 주도 시대에 그러하다.
26. 증거하는 자들은 보아라. 직접 보고 그 현실을 증거하라.
27. 주 역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보고 증거한다. 심판할 때 직접 보여 주시니 보고 증거하고, 축복할 때도 직접 보고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쳐 줄 때도 직접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증거한다.
28.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주의 음성을 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융합이 일어나는 전달을 한다.
29. <주>가 하나님께 들을 때는 ‘원어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하여라. 저러하여라. 내 알았다.” 하신다.
30. 계시를 받거나 영계를 보는 자들도 영계의 사실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 영들의 말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대로 들려오고, 그대로 보인다.
31. <원어>는 듣는 자들만 듣지, 그다음에는 원어를 전달받아 듣는 것이다. 직접 보는 자가 직접 원어를 들은 것이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원어가 아니라 전달받은 복사 언어를 들은 것이다.
32. <원본>은 딱 한 번이다. 그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렸다.”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다. 사진도 현장에서 즉시 찍은 것만 원본이고, 나머지는 복사본이다.

33. 법정에서도 원본만 알아주지, 복사본은 안 받아 준다. 직접 본인이 쓴 것만 원본으로 삼고 그것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원본이 얼마나 중한지를 알고 행하라.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역사다.
34. 지난 10년 동안 주가 행한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가까이 본 자가 있기는 하지만 말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직접 주인이 그 행한 것을 말해 줄 때에야 비로소 깨닫고 알지만, 당시의 현실을 본 것은 아니다. 주가 전달해 주는 것이다.
35. 주의 그림 중에 붓으로 그린 것도 있고, 손으로 그린 것도 있다. 손으로 그린 것이 가장 기교를 부리며 신기하게 그린 것이다. 손가락이 붓이 되어 그렸다.
36. 혀로 그렸는데도 번지지 않고 신비한 색채를 내는 그림도 있다. 그 그림은 스스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 침이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색채가 번져 나갔다.
37. 꿀과 설탕물이 다르듯 각각 그림의 맛이 다르다.
38. 시대를 증거하는 모든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39. 주가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직접 본 자들은 “저렇게 노래를 거침없이 실제로 하시는구나. 한 번에, 단칼에, 단번에 자르고 끊고 하시는구나. 원본에다 맞는 음악만 입혀서 그대로 CD로 나오는구나. 한자리에서 10곡, 15곡, 17곡을 작사, 작곡하면서 1시간씩 연속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며 증거한다.
40. 주가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본 자들은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이 손만 대서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낫는구나. 흐트러진 마른 뼈를 다시금 돌려놓고 제 위치에 놓으면서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과 천사들도 같이 수술하신다더니 정말 그러하구나.” 하고 증거한다.
41.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가 불을 보내노니 그 불이 모든 자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하신 것과 같이, 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입으로 증거하며 말씀하신다.
42.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으로 행했다면 그때에 <두 증인>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열매를 따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 먹지 말라.” 하신 원본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지, 우리가 아니다. 아담이 쓴 것도 아니고 후대에 살아서 행하는 모세가 기록하고, 시대 사람들이 기록했다.
43. 어느 시대든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에 대한 것을 보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은 말로 치기도 하며, 그 적들을 심판도 하리라.” 하였다.
44.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세례요한은 육적인 세계였다. 그러나 요한이 증거한 것이 별로 없었다. 옆에 있어야 증거 내용이 충분한데, 요한은 늘 옆에 있지를 않았다.
45.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다녔으나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적이 별로 없었다. 결국 세례요한은 자기 길로 가게 되었다.
46. 이 시대도 <세례요한>은 요한대로 외치고, <주>는 주대로 외쳤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했다. 지금 있는 증거자들은 우리 편의 증거자들이다. 신약과 성약을 연결시키고 시대를 연결시키는 세례요한들은 참여도 않고 증거도 안 했다.
47. 시대의 세례요한들은 늘 보고 이야기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신부가 되어서 본 대로 현실을 증거하고 있다.
48. 7시간마다 말씀을 전해 주는데도 흔들흔들한다면 참으로 안타깝다. 7시간마다 밥을 먹으면 힘도 나고 능력도 발해

야 하는데, 그렇게 자주 먹여도 능력도 발하지 못하고 힘도 발하지 못하면 쓰겠느냐? 이는 ‘밥보’들이고 육신을 위해 먹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냐.

49. 권투 하는 사람을 봐라. 씨름 하는 사람을 봐라. 먹으니까 이기고 기록을 세우고 완장을 차고 왕의 혁대를 띠지 않느냐.

50.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한다. <주>도 시대의 말씀을 듣고 노래도 부르고 천 년 역사를 남기고 간다. 불과 10일 동안에 엄청난 분량의 노래를 불렀다.

51.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말씀도 전하고 증거하고 행하며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

52.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꼭 해야 살 수 있다. 밥을 먹었으면 일을 해서 또 밥값을 벌어야 되는 것이다.

53. 듣기만 하고 먹기만 하지 말라. <주>는 먹고 일하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밥을 사 주고 음식을 사 준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시대 역사를 일으키게 하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증거에 대한 세밀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붓끝의 예리함을 보이듯이 하나하나, 한 가닥 한 가닥 말씀해 주었습니다. 증거가 그리 큰데, 혹은 생중계 증거가 그리 크고 현실을 본 자들의 증거가 그리 큰데, 그것을 증거를 안 하면 알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정으로 증거해야 될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의 증거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눈으로 보고 깨닫고 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둘러선 허다한 무리들이 보고 들었다. 그의 복음이 일치하더라.” 하며 모두 확실하게 증거하고 말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증거자의 증거를 듣고 다시금 그 이름을 듣게 말한 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되, 늘 보고 듣고 실재를 보고서 증거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영육이 잘되고, 늘 생명을 위해 달리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이 병든 것과 약한 것과 연약한 것과 신앙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노니, “사탄아, 마귀야, 귀신들아, 모두 이들을 해치지 말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예비하고서 주를 맞아야 된다. 예비도 않고 주를 맞을 수 있느냐?

2. <예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개인이 주를 맞을 예비’를 하는 것과 ‘주가 와서 할 일을 예비’해 놓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꼭 해 놔야 된다.

3. 멀리 있어도, 혹은 가까이서 실제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보아도, 외국에 있어도 <자기 예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 할 일>을 예비해 놓아야 한다.

4. 이제는 화면 시대이니 어느 곳이든지 화면을 보고 바로 순회를 진행한다. 교회 명단과 개인 명단만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말하듯이 말을 할 수 있고, 같이 행할 수 있다. 그때 행할 것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야 순회를 할 수가 있다.

5. 어떤 곳은 선생이 가면, 꼭 글 한 편을 써 놓고 그림도 그려 주고 교회 이름 지어 준 것도 붓글씨로 써 달라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선생이 쓰는 붓이 아니라 일반 붓을 준비해 두어 글씨를 못 쓰게 되었다.

6. 성서를 보면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예비해서 바로 등불을 켜서 맞았고, 다섯은 미련해서 맞지를 못했다. 등불이 났든지 촛불이 났든지 예비를 해 놓아야 그 순간 맞고 같이 행한다.

7.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크게 예비놓으라는 비유 중 하나가 <열 처녀 비유>다. 예비한 다섯은 맞이했고, 예비하지 못한 다섯은 맞이하지 못했다.

8. 예비했다는 것은 주를 맞기 위해 평소에 주를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바란 것이다. 그런 자들을 보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느낌이 온다. 늘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통하는 것이다.
9.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못 느끼신다면 아마 뜻을 못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느끼시고 그에게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다.
10.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꼭 느끼시고,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느끼도록 창조했으니 느끼는 것이 정상이다.
11. 사람끼리 말을 안 해도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을 느끼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여실하게 느껴져 온다. 싫어하는 것도 느껴지고, 조심하는 것도 느껴지고, 의식하는 것도 느껴지고, 오해하는 것도 느껴지고, 그릇되게 행하는 것도 느껴진다.
12. 느낌으로 안다. 개미가 더듬이로 느끼며 알고, 바다의 돌고래와 상어는 보내는 전파로 상당히 먼 거리의 위치도 느끼며 안다.
13. 바다의 상어들은 물로 막혀 있어도 잘 통한다. 물이 전기선이 되어 연속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파장이 전달되어서 통하는 것이다. 물이 전기선과 같고, 파장의 선과도 같다.
14. 두꺼운 벽이라도 귀를 바짝 대면 벽을 때리는 소리가 진동에 의해서 들려온다.
15. <1단계 법칙>은 저기서 뜨거운 물을 틀면 그 물이 여기까지 흘러 와서 뜨거운 것이고, <2단계 법칙의 공식, 내적 법칙>은 저기서 물을 뜨겁게 하면 바로 파장이 통해서 여기에 있는 물이 바로 뜨거워지는 것이다.
16. 우리가 하는 말은 공기로 전달이 된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말이 전달이 안 된다.
17. 영의 세계도 똑같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50억 광년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주의 세계는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 여기서 “아!” 하면 그 소리가 금방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18. 하나님의 파장은 이미 우리 귀 바로 옆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 우리의 심정과 생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 더 빨리 더 강하게 전달된다.
19. 영파, 육파, 고주파다. 초고주파는 마치 연결된 세계와 같고, 일반 고주파는 연결되지 않은 세계를 가는 것과 같다.
20.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즉시 상달되는 것을 알고, 천사를 통해 바로 전해짐을 알도록 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보인다.
21. 계획을 잘 짜야 신랑과 신부들이 기쁘고 즐겁게, 하루를 살아도 뜻있고 재미있게 많은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계획한 그 날에는 일생 동안 처음으로 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있다.
22. 개성으로 보면 일생 동안 한 번 하고 끝난다. 그러니 계획을 잘 짜야 된다.
23. 가정에서 엄마와 딸이 잘 통하며 계획을 잘 짜듯이, 성령님과 시대 하와는 서로 잘 통하고 계획을 잘 짤다.
24. 옛날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모녀지간 통하듯이 성령님과 직계로 잘 통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사탄의 딸이 되었다. 예수님은 와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구나. 너희 어미 마귀에서 났구나.” 하며 이를 지적하셨다.
25. 가정에서도 엄마와 딸이 계획을 잘 짜 놓으면 남자들은 힘 있게 행한다. 남자들은 일을 거칠거칠하고 큼직큼직하게 하는데, 여자들은 세밀하게 잘 짤다.

26. 자기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도 생각하면서 같이 들어가도록 짜 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계획을 짤 때 성령도 같이 하고, 짜는 사람도 같이 하도록 더불어 짜 놓아야 멋있게 융화 작용이 일어난다.” 하셨다.
27. 선생은 욕에 있을 때도 항상 하루 계획을 잘 짰다. 다 이루고서 기록하기를, “할 일을 다 해 놓으니 그야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 성취감에 심히 기쁘고 즐겁고, 이는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다.” 하고 써 놓았다.
28. 신부들이 계획을 잘 짜야 된다. 개인의 일들은 그날그날 개인이 잘 짜야 된다.
29. 성령님은 말할 것이 많으시다. 주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고, 시대 하와를 통해 하실 말씀이 있고, 각자를 통해 말할 것도 있으시다. 계시자들의 계시를 다양하게 들어라. 또한 각자가 성령님과 꼭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30. 주가 성령과 같이 너희를 위해서 갈 길을 너희가 잘 짜 놓아라. 주는 때가 되면 와서 그 일을 집행하시리라.
31. 잘 짜 놓아야 행할 일을 잘 이룰 수 있다. 잘 짜 놓고 하나하나 잘 실천하기다.
3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는 모습은 정말 전지전능하시다. 이 세상 가수치고 한 번도 연습도 안 하고서 노래를 불러 음반을 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주는 한 번의 연습 없이 음반을 만들며, 지구촌에 신비한 모락을 행하는 역사를 행하신다.
33. 잘하면 하나님이 더욱 엄청난 프로그램을 짜서 여러 가지를 더 멋있게 하신다. 잘하다 보면 무한한 것까지 할 수 있다. 고로 계속 차원을 높여 행하라.
34. 3.16은 해마다 더 이상적인 휴거를 이루는 때다. 휴거된 자들은 300선, 500선, 800선, 1000선으로 가며 더 이상적이고 더 좋은 부활을 해야 한다.
35. 히브리서를 보면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모든 귀찮은 것을 이기며 살았더라.’ 했다.
36. 우리는 더 좋은 휴거를 위해서 더 참고 견디면서, 고생해도 생명길을 가는 역사를 행해야 되고, 성령이 감동시키시면 형제를 찾아가서 얘기해 주고 이끌어 주고 위로해 주며 행해야 된다.
37. 주의 손이 다 안 돌아가니, 서로 부활을 시켜 주고 이끌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주의 손이 되어 생명을 찾고 이끌고 관리하고 부지런히 하는 역사가 되어야 한다.
38. 미련한 자같이 예비하지 않고 주를 맞아서, 주와 같이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신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주를 맞아라. 자기 개인의 것과 주가 와서 할 일을 예비해 놓고 행하라. 그리하면 다 해 준다.” 오늘 말씀을 듣고 “모든 파장, 통하는 것은 무엇이 막혀도 잘 통하는 원인은 한 통이니까 잘 통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우리 서로 잘 통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는 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우리가 행할 것을 잘 짜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시고, 시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시험 드는 일들, 마귀와 사탄이 욕을 치는 일들 없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약한 자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전체가 늘 섭리의 역사에서 이상 없이 가도록 항상 기도하고 늘 간절한 기도를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계획 잘 짜서 많은 범람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도록 늘 매일 축복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같이 만들어 짜서 하나님께 영광을 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모두 고통을 벗어나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병든 것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늘 누가 보면 아프다고 하고, 어떻게 하나고 하면서 당황해하는 병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래야 주도 가고, 주가 가는 곳에 나 여호와도 간다.
2.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해 줄 자’였다. 이 시대는 <대상자 신부들>이며, 그중에서도 <기준이 될 만한 자>로 인해 평탄케 할 수 있는 운명이 좌우된다.
3.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시대를 의논하며 제대로 맞춰 나가야 한다. 의논을 제대로 안 하면 평탄케 했어도 못 가기도 하고, 또는 가도 평탄케 안 되어 있기도 하다.
4. 섭리사는 상대가 있고, 상대의 기준자가 있으니, 그로 인해서 주가 길을 가게 되었다.
5.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기성같이 주를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막연한 세계가 아니라, 지금은 주가 우리에게 수시로 도적같이 오는 때다. 그러므로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가 오리라.
6.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길, 주의 길을 평탄케 하여 예비해 놓아라. 평탄케 해 줄 자는 역시 요한의 사명을 할 시대 신부들이다.” 하셨다.
7. 다른 사람이 평탄케 한 길로는 갈 수가 없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없기 때문이다. 편하다고 편한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운명, 구원자의 입장>이다.
8. 편한 길이 있어도 갈 수가 없지만, 다만 섭리 안에서는 ‘보다 편하게 해 주는 자들’을 따라간다. 험한 길이어도 예비한 길로 가야 한다.
9. <두 증인>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탄케 해 줘야 한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하면 다 한 것이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하며 말씀하면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주와 같이 행하신다.
10. 모세 앞에 아론이 있듯이, 시대 역사마다 항상 <내적인 자>와 <외적인 자>가 있다. 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한 사람은 ‘땅에서 맞은 사람’ 중에서 대표자로, 두 증인이 역사에 나온다.
11. 주가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만들어 놓아라. ‘주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듣고 의논해서 평탄케 한다.
12. 사람들은 편한 길로 간다. 닦아 놓지 않은 곳은 안 간다. 사랑도, 노래도 닦아 놓아야 그 길로 갈 수 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 닦여 있어야 된다.
13. ‘닦여 있다.’는 것은 ‘이미 다듬어져 있다.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미 가르쳤다. 이미 신부로서 대하고 살 만한 존재자다.’ 하는 것이다.
14. 저마다 닦아 놓았다 하나 실상은 주가 원하는 것을 닦아 놓고 있지 않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늘 말씀으로 해 주고 있다.
15. 월명동도 그 산중의 골짜기를 닦아 놓으니 하늘 군대가 오는 지역이 되었다.
16. <하늘 군대>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 시대 메시아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말한다.
17. 닦아 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도 오시고, 주도 그로 인해서 역사를 펴 나갈 수 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닦아 놓고 만들어 놓았다.

18. 저마다 집을 짓는 자가 터를 닦듯이 해야 한다. 이 시대도 각 분야별로, 각 기관별로 주와 같이 행할 일을 닦아 놓고 기다린다면 주의 몇 마디만으로도 방향을 잡아 줄 수 있다.
19. 늘 닦아 놓고 오라고 해야지, 닦아 놓지도 않고 오라고 하면 갈 수가 없는 운명이다.
20. 전도할 때도 한 사람은 닦아 놓고 한 사람은 말씀을 주면서 두 사람씩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적인 자나 외적인 자가 그런 조직을 이용치 않고 무조건 하면 공격을 받는다.
21. 하이에나가 20마리씩, 30마리씩 모여들면 사자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다른 사자가 오니 하이에나들이 금방 꼬리를 들고 싸우지도 않고 갔다.
22. 선생은 조은 목사에게 “저와 같이 혼자서는 안 된다. 너도 물려 죽고 나도 물려 죽는다. 큰일 나. 힘들지만 항상 하나 되어 과거에 하듯이 하자.” 했다.
23. 반드시 혼자 하면 안 된다. 전도도 혼자 하면 안 되고, 사회에 쳐들어갈 때도 둘씩 해야 된다. 두 감람나무가 일체 되어야 한다.
24. 사자 두 마리가 하나 되면, 물어뜯고 칠 만한 동물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사자라도 혼자 있을 때는 최고의 천적, 하이에나가 치게 된다.
25. 하이에나에게 걸리면 다 씹혀서 뼈가 남지 않을 정도다. 육적으로는 가인의 족속들, 불신의 족속들, 배신한 족속들이며,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다.
26. 마리아와 마르다는 조직을 해 놓고 주님의 발판을 만들었기에 주님이 그 집에 가면 굶어 죽는 일이 없고, 말씀을 못 전해서 발판이 안 되는 일이 없었다.
27. 주가 오면 반드시 ‘말씀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도리적인 입장에서 꼭 ‘먹여 주어야’ 한다. 주는 바빠서 못 먹고 돌아다니니 마르다같이 신경 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28. 교역자를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고, 먹는 것을 살피 주는 것이 필요하다.
29. 늘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를 다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안 하면 바로 문제가 생겨서 말씀이 돌아가 버린다.
30. <전문가>가 해야 된다. 축구도 전문가, 프로들이 해야 게임을 이기지, 일반 사람들은 게임도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다.
31. 증거의 전문가가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증거의 역사를 하게 하신다.
32. 주님의흰돌교회에 <증거의 별>이 있으니 교인들이 뭉쳐서 딱딱 신경써 주며 밀고 나가야 된다. 다른 데서는 그 발판을 못 해 준다.
33. 증거자가 증거를 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증거의 말씀의 칼을 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말씀이 나가면, 영계에서 말씀의 칼이 날아간다. 그러나 증거를 하지 않으면 사탄이 물러가지 않는다.
34. 하나님이 증거는 ‘증거자’를 쓰고 하시고, 말씀은 ‘말씀 사명자’를 쓰고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크다는 것이다.
35. 항상 ‘자기 닦기’, ‘섭리사 닦기’, ‘알고 행하기’다. 그래야 그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된다.

36. 뛰고 달리는 자들이 꼭 <증거자의 증거>를 받고 행하라.
37. 선생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자>를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 하는 자이다. ‘일반 증거자’와 같은 증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증거자’는 <주>를 증거한다.
38.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사탄들이 증거자를 괴롭힌다고 나온다. 그들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에서 나오는 사자들이 또 나타나 괴롭힌다고 했다.
39. 증거자가 증거를 안 하면 안 된다. 모든 순서를 짜 놓고 준비해서 증거자가 “안전합니다. 이곳은 가야 합니다.” 할 때 그 길을 가는 것이다.
40. 사람들이 ‘증거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주’만이 안다. <선생>도 6천 년 만에 왔지만, <조은 목사>도 6천 년 만에 나온 것이다. 선생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선생을 통해 기르셨다.
41. 주는 이미 40년을 뛰었다. 조은 목사는 현재 20년을 뛰었으니 아직 20년이 남았다.
42. 증거의 세계는 증거자의 말씀을 들어야 믿어진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43. 섭리사에 남길 일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다. 미리 준비해 놓고 가야 한다. 이제 우리 역사가 시대를 잡고 간다.
44.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이 철통같은 것’, 그리고 ‘증거자를 믿고 행할 것’이다. 개인도, 섭리사도 시대 역사를 크게 펴면서 가야 된다.
45. 주가 한 일들을 하나씩 영상으로 잘 담아 났다가 역사를 철통같이 증거하는 것도 큰일이다.
46. 항상 예비해 놓고 맞아라. 이 말씀의 주인들이 되어 늘 하나님이 강림하시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47. 준비가 안 되어 자기 자신을 한탄할 필요 없이, 말씀했을 때 미리 준비해 놓고 칼날같이 탁탁 해야 된다.
48. 사명자를 뒤서 해야지, 여러 사람에게 미루면 ‘서로 했겠지.’ 하고 생각하고 만다.
49. 아무리 <주>가 나왔어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달리고 행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그냥은 안 된다. 바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씨를 뿌리고 더 퇴비하고 더 역사를 펴 나가야 달라지는 것이다.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똑같다.
50. 자기만 준비되어 있으면 전도할 사람은 항상 예비되어 있다.
51. 역사는 진심으로, 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일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전심을 다해서 가는 자>만이 시대에 남고 섭리사에 남아 역사를 펴는 자들이 된다.
52. 앞으로 기성의 2세들도 많이 오고, 사회의 2세들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러니 질서 정연하게 잘해야 할 것들이 많다. 큰 사람들은 큰 데서 맞고, 작은 사람들은 작은 데서 맞고, 학생들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맞으면서 해 나가야 된다.
53. 섭리를 따라오다가 본인이 그릇되게 행하고서 불만 불평이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꾸 전화하면서 괴로움을 털어놓는 자도 있다. 유혹을 피하면서 잘 해 나가야 한다.

54. 일을 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면서 시대를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해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온 이들에게 증거의 발판을, 그릇을 모두 만들라고 했습니다. 해 놓는 곳에서는 하지만, 해 놓지 않은 곳에서는 못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발판을 모두 닦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신속히 행해서 시대를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여기 주님을 상징하는 흰돌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영영히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천륜의 법칙을 정해 놓기를, 모두가 일률적으로 공의롭게 수고의 대가를 받도록 정해 놓으셨다.
2.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행한 터전 위에서, 모든 존재의 세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과 마음이 가지 않은 것이 없다.
3. <원 존재>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의 손이 가서 만든 것은 <대상의 존재, 제2의 자신>이다.
4. 작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 때는 자기 정신, 생각, 계획, 설계, 구상을 최대한으로 넣고 만들어 창조한다. 없는 것을 만들되,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을 빚어 만든다.
5. '일생일작(一生一作)'이다. 사람들은 일생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찾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6.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심정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만든 것이 일생의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다.
7. 수석을 줍는 수석가들은 일생에 하나밖에 없는 수석을 줍기를 원하고, 또 사기를 원한다. 자기 마음에 딱 들어야 한다. 자기가 원했던 것을 줍고, 사고, 만든다.
8. 선생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나를 닮은 것'이다. '내'가 천하에 제일 귀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닮은 것'이다. 그 나머지는 개성마다 다르다.
9.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자를 창조해 놓고 역사를 시작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
10. 자기를 닮게 만든 것이 <최고의 작품>이다. '일생일작'이다. 그 창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
11. 자기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를 가르치고, 자기 생각을 닮게 하고, 자신이 행하는 것을 같이 행하게 하여 자기의 뜻을 이룬다.
12. 하나님이 처음이요, 나중까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제대로 선(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라.
13. 선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두고 10대 때부터 많은 기도를 하고 간구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전해 주겠다고 했다.
14. 모든 것을 따지고 이치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짝을 이루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에 하나님이 그런 모양과 형상으로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그다음부터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5.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물어보니, 꿈에 아버지로 보여 주셨다. 늘 아버지가 하나하나 얘기해 주고 지적도 해 주고, 어느 때는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을 하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

16.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원 존재로 남성의 존재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람같이 생겼으나 그 존재는 영체의 존재자라는 것을 알았다.
17. 하나님은 눈 두 개, 코는 하나, 콧구멍 두 개, 귀도 두 개, 입은 하나이며, 치아도 사람처럼 나 있되, 그 존재는 영체이신 존재자이시다.
18. ‘영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며 영계로 들어가서 보니, 같은 존재라도 이상적으로 엄청나게 존재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같은 영체라도 일반 영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 주셨다.
19. 영계는 자기 생각에 따라 어느 때는 크게 보여 주시고 어느 때는 작게 보여 주시기도 하셨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못 할 것이 없는 존재자로 보여 주셨다.
20. 하나님을 확실히 알았으니 확실히 전해 주어라.
21. ‘나’라는 존재자는 하나님이 실제 만들고 창조한 <대상체>이다. 부모가 자기를 낳듯 하나님도 낳으셨다. <제2의 자기>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도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22. 바로 알고 확실히 아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하셨다. 누구는 사명자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중심자로, 누구는 메시아로 사역을 시키셨다.
23. 하나님은 세상을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제2의 자기의 존재성을 찾으셨다.
24.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영체의 모양과 형상을 닮게 이치를 따라 창조하되, 만물로써 창조했다. 동물은 동물로써 창조하고, 사람은 실제 존재체로 같이 하나 되게 창조하였다.
25. 창조의 깊은 내용을 보면, 타락했을 때는 자기가 창조한 존재체라도 그 대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을 이루는 것도 달랐다.
26.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그대로는 쓸 수 없고 회개시켜서 원래대로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 기간을 형벌 기간으로 정했으니 시대적으로는 4000년이요, 당세에서는 일생이었다.
27. 아담과 하와는 일생 동안 형벌 기간이었고, 그 주관권은 구약 주관권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를 따져 보면 당세에 복직을 못 한 것이다.
28. 하나님은 그 자손 중에서 다시금 행하셨으니, 노아 때와 아브라함 때에 행하시면서 나름대로 구약의 역사의 터전을 이루시고, 신약은 본래의 상태로 복직하여 하나님이 100% 역사를 시작하셨다.
29. 기다리던 자들 중 믿지 않은 자들로 인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막고 불신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보낸 자는 문제가 없는데 구원받을 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30. 하나님이 보낸 자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 주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 악의 대가로 대신 죽어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 주었다.
31.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 본래 만든 대로 사랑과 의로써 자기 마음과 자기 심정을 통해 만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통하고 행하면서 복직된 이들이 되었다.
32. 구약은 보낸 자가 못해서 그와 같이 되었고, 신약 때는 상대가 못해서 그렇게 되어 버렸다.

33. 당시 중심자, 세운 자, 하나의 구세주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힐문하고 반대하고 막고 하나님께 쫓겨남을 받은 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잘못했다.
34. 신약 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는 이상이 없는데, 보낸 자를 맞는 자들이 잘못 맞았다. 불신하고 배신하고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35. 항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는 제대로 하는데 대상이 제대로 못할 때가 있고, 대상체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보낸 자가 잘못할 때도 있다. 이 두 세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신이 되어 보듯이 보이는 것이다.
36. 이 세상의 많은 학문도 배워야 된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배워서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들을 배운다.
37. 시대 말씀은 메시아가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수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때 세상 이치를 완전히 알아서, 신의 존재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38. 그냥 봐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잘 모른다. 역사를 펴서 그 뜻을 남긴 것을 봐야 그가 건축가인지, 어부인지, 운동선수인지, 정치가인지, 재벌인지, 구세주인지 알 수 있다.
39.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도 하고, <행하는 것>을 보고 주를 시인했다.
40. 그러지 못한 자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며 메시아라고 따르는 자들은 수준이 낮아서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다.
41. 세상의 수준은 높아도 생각의 수준이 어린아이라 판단력이 없으면 엘리트들이라도 잘못된 종교에 속해서 따르며 간다.
42. 어렸을 때 지능이 낮은 것을 받아들이면 체질화되어 그대로 자꾸 하게 된다. 종교 선택도 그러하다. 부모부터 선택을 못 하면 자녀도 선택을 못 하게 되어 있다.
43.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제2의 작품으로 하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만드셨다.
44.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작품을 좋아하며 즐긴다. 섭리사는 선생을 따라 소나무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돌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환경 작품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45. 선생은 일생 동안 월명동보다 더 크게 작품을 만든 것이 있다. 나와 같이 주장하고, 나같이 말하고, 내 마음같이 만든 <조은 목사>다.
46. 하나를 잘 만들어야 따라서 또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전체에게 칼이요, 검이요, 톱이요, 도끼요, 틀인 <말씀>을 주며 만들고 있다.
47.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다. 자기를 지은 자, 만든 자, 영원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게 만들어야 된다.
48. 주와 같이 만들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맡겨서 하라고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조종하면서 딱 맞춰서 하신다.
49. 선생은 500점 이상의 수석을 가지고 있는 ‘수석가’다. 그중에는 성령님이 가지고 온 엄청난 수석도 있고, 성자가 주신 수석, 하나님이 주신 수석, 선생의 손으로 주워 온 수석도 있다.
50. 한 가정이라도 일체가 안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것은 절대 아버지의 것으로만 끝난다. 형님 것은 형님만 가지고

끝나게 된다. 그러나 선생은 항상 하나님이 쥐서 행하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라는 근본을 깨달았다.

51.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자기 작품, 일생일작(一生一作)으로 해 놓으셨다.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복을 받게 아예 뇌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다.

52. 하나님도 행하는 대로 복을 받으시고, 잘못 행하면 화를 받으신다.

53. 하나님도 사랑해야 사랑을 이루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이루어진다.

54.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못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선(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심 말고 계속하라.

55. 금년도는 선교해서 자기의 일생일작들을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된다.

56.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 하면, 하루에도 꼭 한다.

57. <수석을 줌의 방법> 중의 하나는, 무턱대고 아무것이나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수석’을 찾는 것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이후에도 말씀할 것이 엄청나게 무한히 많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니, 마음 폭 놓고 실컷 하도록 하라. 어떤 자는 ‘이렇게 많이 행하는 나는 못 받았다.’고 울고 짜고 억울하다 하지만, 그건 네 시간을 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네 시간 재고 이때 안 됐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 줄 사람의 시간을 봐야 되지 않겠냐? 가만히 있어라. 실컷 네가 행한 대로 줄 것이니까 걱정도 말아라. 나에게 누가 행한 것이 있느냐? 주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다 갚아 준다. ‘때 지났는데...’ 하지만, 네 때는 지났지만 내 때는 안 지났다. 주는 자의 시간은 안 지났다. 기다려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 내용도 많아서, 그 보낸 자 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생일작!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일생일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귀하게 창조해 놓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마지막 작품, 신부로 만들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쓰는 것’, 이와 같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역사의 일작으로, 성약시대의 사랑하는 자들로 선택하고 자기 사상과 정신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이는데 늘 잘 살게 해 주시고, “결혼도 중요한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저녁에 끼안고 관계하고 자고 하는 연애는 쉽지만, 사는 것이 더 어렵다. 결혼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 했습니다. 의인은 단잠을 자지만 미인은 긴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이 시대의 법칙과 이치를 맞춰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고, 악으로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지금 갚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를 갈며 몸부림을 치며 괴로워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함이 악한 대로 이제 받으니,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이며 온전할지이다. 그 행위로 인해서 땅에서도 지금 형벌 받지만,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한 번 가면 1분을 못 건디는 그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림을 느끼며 행하는 이들 중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미 처단되고 죽음 속에 가서 사망의 몸부림을 치고 지옥에 가서 썩물을 마시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을 마시며 늘 같이 살고 성령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형제, 주를 사랑하며 행한 대로 받으니, 늘 온전히 행하며 의심도 없이 행하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일생일작,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신전을 지어 놓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거기를 생각하면 기쁩니다. 사람들이 별장 하나 있으면 늘 거기를 생각하며 수시로 가서 자고 오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늘 귀하게 여기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고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기도하며, 우리 한국을 중심한 온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들, 섭리의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오고 간 이곳에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교회를 잘 운영하도록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자와 연약한 자들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모든 일들을 신랑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 뜻대로 제대로 하도록, 날마다 막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할 일을 꼭 하면서 가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가 빌었으니 모두 들어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매일 주는 말씀은 전체 한 덩어리를 매일 쪼개서 말씀해 주는 것이다. 마치 한 권의 책을 쪼개서 주는 격이다.
2. '만물'부터 시작하여 만물의 주관자이면서 하나님의 상대자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계는 마치 시계와 같이 각자 가고 있지만 초침같이, 분침같이, 시침같이 쪼개서 가고 있다.
3. 모든 만물의 세계는 자동적으로서 그 반응을 따라서 존재가 계속 갖춰지면서 이루어진다. 곧 그 존재하는 대로 행위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구태여 일일이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아도, 손발이 가지 않아도 되도록 아예 그렇게 창조를 해 놓으셨다.
4. 인간과 만물은 그 행위대로 받는다. 그러니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얻을 수 있다.
5.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까지도 행해지도록 하신다. 너희가 행하는 대로 갚아 주리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마음먹는 대로, 생각한 대로 행하여지리라.
6. 하나님의 천륜의 순리의 법이다. 만물과 인간도 스스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 좌우되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행해진다. 행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일이니 마음 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7. 몰라서 못 행하니 알아야 될 것을 절대적으로 알고 행해야 얻는다.
8. 인간이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시대는 지나가야 알고, 행해도 모르는 것도 있다. 알고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를 못 하니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기도 하고, 또 알아도 보통으로 아니까 소극적으로 행해진다.
9. 깨닫고 절대성을 가지고 알면 그 마음 따라 육신이 그만큼 움직여져서 행하게 된다.
10. 역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는 일이라,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는 자만 알게 된다.
11. 지난 역사를 봐도,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하고 바라던 일들인데 모르니, 성경을 바로 깨닫고 풀고 알지를 못하여서 행치를 못했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12. 시대는 가지만 우선은 아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열차는 시간 따라 가지만, 아는 만큼 타기도 하고 안 타기도 한다.
13. 시대가 가는 가운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 아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해가 자꾸 넘어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둠 속에 묻히니 자기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14.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하나님의 천륜의 법칙의 말씀이 있어도, 모르면 좋게 행할 수가 없다.
15. 기본적으로 인생들은 선을 행해야 좋게 된다고 하지만, 정작 무엇이 <선>인지를 모른다.
16.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선(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악(惡)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다만 악이란 악하게 하는 것이고, 선이란 착하게 하는 것이라는 정도만 양심으로 알 뿐이다.
17.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르니 메시아만큼 대할 수가 없었고, 기존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하니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18.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옛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행하라고 한 것을 새 시대에는 행치 말라고 하셨다. 구약시대에는 동물로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19. 구약 때는 알고 행했으나 신약 때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르니 행치를 못했다.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대로 행할 수가 없었다.

20. 메시아만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악이 갈려 간다.

21. 세상의 법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과는 다르다. 종교법을 볼지라도 국법과 천법이 다르다.

22. 한 나라는 불교 신앙을 자기 나라의 최고 신앙으로 보고 그 법을 정하여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불법(不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였다.

23. 선생은 <불법(不法)>을 ‘불교 법, 불법(佛法)’으로도 풀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물러가라 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또 사회에서 볼 때는 ‘불의의 법’으로도 풀 수 있다. 성경은 한 단어를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다.

24. 구시대 법은 새로운 시대의 절대적인 법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죄악시하고 불의로 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법은 다르다.

25.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가 가면서 항상 다른 법으로 대했다. 한 나무라도 뿌리가 다르고, 나무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듯이, 뿌리는 뿌리 법이요, 나무는 나무 법이요, 열매는 열매 법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26. 나무의 원리를 보면 같은 나무에서 열매가 열려도 맛있는 쪽이 있고, 맛없는 쪽이 있다. 포도 열매를 봐도, 각종 과일나무 열매를 봐도 햇빛을 받는 양지쪽의 열매가 더 맛있다.

27. 시대도 마찬가지다. 같은 새로운 시대를 가는 자들이라도 보다 더 주의 사랑을 받고, 보다 더 마음을 받는 자가 있다. 더 가까이 있는 자와 멀리 있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위치까지 차이가 있다.

28. 욕심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으로 대하는 대로 좌우된다. 마음이 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행함이 달라지고, 영의 형체가 달라지게 자꾸 영이 변화되고, 영의 집이 지어지는 것도 달라진다.

29. 말씀을 들을 때도 ‘조는 자’와 ‘무의식 가운데 듣는 자’와 ‘진짜 듣는 자’가 차이가 난다.

30. 선생은 ‘늘 생각하는 자’와 ‘앞에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보통으로 하는 자’와 ‘멀리 있어도 늘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자’를 영체로 다 투시한다.

31. 가까이 있는 만큼 정신 차리고 행하고 사랑과 두려워함으로 감격하며 주를 섬기는 자와, 가까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며 주를 보통으로 보는 자는 점점 멀어진다. 임무를 하나씩 철수시키고 마지막 임무마저 못하면 서서히 스스로 멀리 떨어지게 된다.

32.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싫어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자기가 스스로 싫어지게 하신다.

33. 여기 있을 때는 안타깝고 아깝다고 하지만, 섭리사를 나간 후에는 잘 나갔다고 한다. 감히 만군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렇게 믿으니, 주가 가는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땅에서 조금 참여하다 끝나는 정도다.

34. 이는 마치 나무를 사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사서 못 사게 되면 너무 아쉽지만, 그 후에 가서 그 사람이 길러놓은 나무를 보니 별로인 것과도 같다. 그러면 그때 그 값으로 안 사고 다른 것을 산 것이 훨씬 좋으며 비교하면서 좋아하며 잔치한다.

35. 하나님이 숨겨 놓고 하시는 일도 마음먹고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
36. 성경에서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다. 아들은 몰라도 부인은 안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아들 주관권 속에 들어 있다. 신부는 다르다.
37. 또한 성서에서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알고, 빛 바깥에 있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모른다.’ 고 했다. 시대적으로 볼 때 ‘빛’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한다. <구시대>는 ‘어둠’으로 본다.
38. 휴거 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녀권은 모르고, 애인권은 알게 되었다. 아는 자가 주인이 되어 휴거 역사를 맞았다.
39. <휴거>를 영적으로 따지면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가는 것이니 ‘육신’은 몰라도 상관이 없다.
40. <죽는 날>도 육신은 모르나 영은 안다. 휴거 날을 며칠 전에 알았듯이, 영이 육보다 빨리 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3일 전에는 알려 준다.
41. 영적인 자의 육신은 빨리 느끼고 알고, 육적인 자의 육신은 잘 모른다. 영적인 자는 영의 감동을 받고 영이 하는 것을 느끼고 안다. 영은 이미 육신이 사고 나서 죽어 가거나 아파서 죽어 갈 때 판단한다.
42.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 주시니 행위를 잘하여라. 남 원망할 것도 없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니 자기를 원망하면서 행해야 된다.
43. 하나님이 메시아를 땅에 보내셨으면, 그때는 메시아의 마음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자기 생각은 상관이 없다. 준비가 안 된 자는 안 된 대로 구원을 못 받고, 준비가 된 자는 된 대로 구원을 받는다.
44. 모두 하나님이 메시아를 타고 와서 행하시는 일들이다. 메시아가 하는 대로 대해 주면 구원받고, 대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되든지 불법으로 본다.
45. 하나님이 메시아를 타고 왔는데, 그때 자기가 신앙을 갖추지 못해서 제대로 못 했으면 하늘은 불의로 보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46. 예수님이 때가 되어 나타났는데 유대 종교인들이 신앙의 성장이 덜 되어 못 깨닫고, 못 깨달은 대로 대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법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으로 보았다.
47. 이 시대를 따라오는 자들도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48. 주를 그리도 사랑하고 열심히 하던 자들도 가다가 서운한 일이 있든지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주의 행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생각할 때는 흠을 잡기도 한다. 이런 자들은 주가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참아 주며 대해 주는 사람도 있거니와,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못 할 때도 있다.
49. 자기가 의롭다 생각을 해도, 그것이 표준이 되지는 않는다. 주에 대한 계산, 하늘에 대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50. 절대적인 하나님이 법이요, 절대적인 메시아의 법은 메시아가 대신 희생하면서는 대하지만, 자기 영혼이 말살되게 하면서는 대하지 않는다. 한계 전까지만 손을 댈 수 있다.
51. 하나님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까지는 대하지 않으신다. 지옥문을 마지막으로 여는 데까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신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안 믿고, 보낸 자를 안 믿으며 지옥으로 가는 자는 어쩔 수가 없다.

52. <하나님>도 <주>도 누군가가 섭리사를 나가면, 이리도 대해 보고 저리도 대해 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행하는 대로 길을 가며,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오고, 죽음의 경계에서 누가 봐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대로 두게 된다.

53. 하나님이 인생들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면 하루를 못 간다. 인간들은 너무 실수를 자주 해서, 그냥 두면 바로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죽기까지 한다.

54.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시고, 모든 만물도 대하는 대로 갚아 준다. 거름하고 퇴비하고 물 주고 열심히 가꾸는 만큼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열매가 열려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렇게 대하지 못할 때는 나무도 꺾죄죄하게 끝나고 만다.

55. 어느 때는 바로 주기도 하지만, 어느 것은 오래 있다가 주기도 한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부지런히 행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리라.

56.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것들을 지켜 행했고, 이제는 계속 받는 시대가 왔다. 부활기에 계속 받고, 또 받으면서 부활되는 시대가 왔으니,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많은 것을 얻어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행위대로 주신다는 말씀을 주셔서 오늘 것을 또 전했습니다. 내일 것도 듣고, 모레 것도 듣고 하다 보면 전체 윤곽이 잡히면서 더욱 알게 될 것인데. “행한 대로 주니 알아서 행하라. 너희가 나를 대하는 행위대로, 나와 같이 나의 법을 지켜 행하는 대로 줄 것이다. 불법을 행치 말고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대로 받으니 마음 놓고 의를 행하라. 의도 그 시대의 주를 중심해서 행하는 의가 의이지, 주를 벗어난 의는 특별한 의가 못 되고 다만 욕심이 존재하는 데 약간은 유익이 있는 의들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영원하니, 이 시간도 우리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리며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멋있게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무엇을 하든지 하는 대로 되는 것’은 천주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 순리의 역사다.
2. 만들었는데 안 만든 대로 되어 버리면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겠느냐? 가만히 둔 일에 스스로 변동이 생긴다면 세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지 않겠느냐?
3. 다만 만들어 놓은 것이 세월이 가면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은 ‘순리의 법칙’이며, 원하는 대로 자꾸 손질하고 손을 대면서 좋아지게 하는 것도 인간이 해야 할 ‘순리의 원칙’이다.
4. 모든 것을 알아보고 또 파악해 보고 따져 보면, ‘되어지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밀한 것들, 인간으로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가 있다.
5. 사람 자체도 가만히 두면 안 되니, 선악 간의 행위대로 되어서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절대적인 법칙>이라 달리 안 해 주신다.
6. 사람들이 볼 때는 선을 행하고 살았어도 별 표가 안 나고, 악을 행하며 살아도 별 표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다. 과정 중에는 별로 표가 안 나지만 결과에서는 표가 난다. 곡식을 심어놓고 보면 별 표가 안 나지만, 결과의 열매가 완전히 열렸을 때는 표가 난다.
7. 열매가 열렸다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고 쓰면서 표가 나게 유익이 된다. 반면, 악하게 살아서 열매가 없는 자는 두고두고 곤고하고 배고프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무한대로 연속된다.
8. 만일 한 번의 농사로 100년을 먹고 산다면, 행위대로 농사가 잘되어 열매를 거둔 자는 100년 동안 먹고 누릴 것이

고,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고 껌부기가 되고 떨어져 버려 거두지 못한 자는 100년 동안 굶주릴 것이다. 100년 동안 죽음이 없는 세계라면, 죽을 수도 없고 고생만 하고 배고픈 고통을 겪을 것이다.

9. 하고 안 하고의 결과는 무한한 문제를 두고 받게 된다.

10. 인생 일생 농사에 의해 운명이 영원히 좌우된다. <인생 일생>은 한 번 씨를 뿌리는 입장과 같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잘 짓는 기간과도 같다.

11. 일생 가운데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며 잘 살았다면 잘된 농사를 지었으니 그 결과로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 일생 백년같이 영혼 일생도 잘되고 형통하고 영원하다.

12. <인생 일생>은 '영원 일생'이다.

13.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고 천 년이 차기까지 축복을 받으리라.' 한 것은 이 세상은 혼인 잔치가 하루이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천 년이라는 것이다.

14. 인간의 날로 결혼 날이 하루이듯이 하나님의 날도 역시 하루인데, 그것을 인간의 해로 따진다면 천 년이라는 것이다. 그 기간이 사랑하며 혼인 잔치 하는 기간이다.

15. 사람은 혼인 잔치를 하루 하고, 일생 동안 같이 살아간다. 하루 혼인 잔치를 하고 약 2만 배 이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혼의 세계도 인간 날로 천 년 혼인 잔치 하고 나머지 같이 사는 날을 인간의 날로 친다면 천 년의 3만 배 정도 되니 영원한 세계라 할 수 있다.

16. 구약역사가 4000년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 신약이 왔어도 구약 내에서 연속되었다. 신약역사도 2000년이 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주관권에서 계속 돌고 있다.

17. 영계나 육계나 '구약'은 구약역사 차원으로 계속되고, '신약'은 신약역사 차원으로 계속되고, '성약역사'도 그 차원으로 계속된다.

18. 다른 차원으로 옮기지 못하면 그 차원으로 연속된다. 차원은 행해서 높이는 것이다. 행해서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그 주관권에서 10년, 20년, 30년 연속하게 된다.

19. 젊었을 때는 할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 못 하듯이, 신앙도 늙으면 젊었을 때 하던 것만큼 못 한다. 그러면 차원 높이가 불가능해지고 그 차원을 못 높인 채 영계로 가게 된다.

20. 주와 같이 뛰고 달리는 자들은 나이를 먹어도 상관없이 차원을 높여 올라간다.

21. 초침, 분침 다 지키고 시간을 지키려면 미리 해야 된다. 항상 미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22. <3.16>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차원을 높이고 또 휴거를 맞이해야 할 날이다. 하나님은 항상 차원을 높이는 휴거를 진행하신다.

23. 그 날을 위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지금 뛰듯이 모두 같이 뛰고 달리면서 행하면 차원이 높아진다. '주'라는 머리와 같이 지체들이 같이 뛰고, 섭리사 전체가 행하면 차원이 높아진다.

24. 기도도 하고, 사랑에 충만하게 행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때를 지켜 행하면 휴거 차원이 높아진다.

25. <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보다 더 그쪽 면에 점수를 더 받고 변화되어 휴거의 차원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휴거>라는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6.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며 일체 되어 행하는 일, 더 빛나고 더 이상적인 일들이 <휴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7. 평소에 항상 시간을 지켜 행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 차원 높은 휴거의 역사가 된다.
28. 휴거는 덤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건건이 손을 대야 된다. 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한 가지만 했다고 해서 전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29. 집이 없어서 곤고하고 차원이 안 높아지는 문제는 집을 지어야만 해결된다. 그러나 집을 지었다고 해서 '잘사는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빚을 져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다.
30. '경제'면에서도 부활이 되고 휴거가 돼야 한다. 그 면에서 뛰고 달리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 종을 올리는 것이다.
31. 누구를 위해 종을 올리겠느냐? 자기를 위해 종을 올리는 입장이다. 수고하고 애쓰면 자기가 얻으니 뭘 만하다는 것이다.
32.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어 있으면, 수고하고 애써도 다 바쳐야 된다. 그를 위해서 줘야 하니 뛰고 달리고 열심히 했어도 얻은 것이 별로 없다. 씨만 남기고, 먹을 것만 조금 남겨 놓고 다 가져간다. 그런 시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다 자기가 얻게 되니 뭘 만하고 할 만한 것이다.
33. 행한 대로 '네게' 갚아 주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한 대로 갚아 주겠다는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도 도와 달라고 한다면 도와주리라.
34. 근본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35. 선생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는 말씀을 나의 성경 구절로 삼았다. 이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행해야 될 말씀이다. 잘못하거나 악을 행하면 즉시 얻어맞기 때문이다.
36. 선생은 이 말씀에 의해 잘못 행할 때는 혼나고 책망받고 책벌을 받기도 하고, 잘 행했을 때는 축복받으며 왔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못 한 것도 있기에 손해가 많이 가기도 했지만, 행하고 받은 이익이 더 많다.
37. 지구촌에 75억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일이 행할 때마다 갚아 주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가도 되도록 지구 자체를 아예 '자동 장치'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가서 안 해 주셔도 그 환경이, 만물이, 사람이, 동물이 행한 대로 갚아 주도록 아예 만들어 놓으셨다. 고로 행하기에 달린 것이다.
38. 행하는 대로 서로 갚아 주니 하나님이 없어도, 성령님이 안 계셔도, 주가 없어도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때그때 사랑의 화살, 혹은 고통의 화살이 날아온다. 고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행해야 된다.
39. 하나님도 성령님도 행할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신다. 자기가 스스로 행할 일은 스스로 행하면 된다. 자기가 행할 일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라.
40. 하나님이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시기를, 사람과 만물이 행하는 대로 갚아 주도록 이미 창조해 놓았노라. 너희는 정녕코 이 말을 듣고 행하도록 하여라.
41. 잘하는 자는 얼마나 좋고, 또 악을 행하며 제대로 못 하는 자는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아느냐? 모두 행하여라.
42. 너희 스스로 생각을 하고 행하면 아니 되느니라. 하나님과 같이 성령과 같이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도록 하여라.

43. 주는 안 보일 때 더 신격화할 수밖에 없다. 보이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 그것을 깨닫고 잊지 말고 하루 종일 생각하며 적어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중심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 빛을 받으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 연약한 자, 모든 힘든 자들에게 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모든 자들, 계획을 짜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짜도록 성령과 함께 행하고,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여 영광을 길이길이 나타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과 사랑이 모든 자에게 충만하고, 아픈 자, 병든 자의 약한 것이 치료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자들이 평화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모두 그 마음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행위대로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행함을 받고,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의를 행하며 살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선으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짐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선을 행하며 낙심치 말며, 그리고 중지하지 않으며,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가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들이 사탄의 마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사탄의 마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고 생명권의 역사에 와서 살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섭리의 세계, 온 세상 종교인들, 모두 행하는 대로 되니 하나님께서 이를 깨우쳐 주셔서 온전하게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많은 종교들의 그 행위를 볼 때, 결국 행하는 대로 되고 말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갚으셨고, 모든 만물도 인생들도 행하는 대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를 깨닫고 엄격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행하는 대로, 대하는 대로 받고서 저렇게 희망을 잃고서 모두 시대의 해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자기를 구원하러 온 자를 불신한 죄요, 배척한 죄요, 알지 못한 죄임을 압니다. 영도 육도 잘되고 형통되게 살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고, 성령께도 성자께도 그리함을 갖게 해 주시고, 주께도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밤마다 꿈으로 보여주시고,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길이길이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짜 놓은 모든 시간들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시대의 많은 생명들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루가 더 되게 축복해 주시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차사고, 인명사고, 재해사고, 각종 사고들이 발생되며 안전사고도 발생합니다. 하찮은 것 가지고 다치게 되고, 하찮은 일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도로에서 달리는 차가 서로 서로 같은 방향을 가다보면 스치게 되고 받히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잘 싸움도 없습니다.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성령과 주의 뜻을 두고 역시 차를 몰고 가듯 같은 방향으로 군중들이 가게 됩니다. 가다가 스치지도 받히지도 않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서로 싸움도 아픔도 없게 해 주시고, 민족끼리도 서로 박고치고 고통 주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역사로 진전되고 진전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우리 섭리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죽음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관리를 잘못된 죄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모두 살려놓고 다시 따지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내가 손만 조금만 대도 낮는데 그런 시간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무리가 심히 큼니다. 하나님, 사신(邪神) 우상 앞에 지구촌의 10억 20억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살게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고 오늘도 이들이 만군의 하나님 앞에 모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깨우쳐 주시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어서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들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하러 온 자가 말하노니 그 마음들이 연속되고 연속될지이다. 그들이 섭리의 세계로도 오지만, 기성에도 가고 참된 종교로 가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몸부림치며 흑암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펴며 가는데 알지 못하면 저들같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쌍한 자들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하나님 같은 주를 믿으면서도 생각들이 잘못돼서 배척이요, 불신이요, 그리고 떠밀기요, 모든 악평들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사 잠잠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알지 못하고 하는 그들이 깨닫고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다. 시대의 신부들이 흑암세계에 처하지 않게 해 주시고, 모두 깨끗하게 살게 해 주시고 온전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닦여진 자와 같이 닦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정녕코 '하나님이 동방의 독수리를 보내서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고 깨닫고 이들이 믿고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섭리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많은 인(人)구름으로 하늘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합니다. 이

들이 모든 오늘도 뛰고 달리면서 시대의 차원을 높이고 자기 신앙의 차원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3.16,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돌아오고, 구원자가 온 날이 돌아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들을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던 나라인데 부강하게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을 펴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부강하게 해 주신 것을 믿고 압니다. 열심히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격감사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살다 죽는 지경들입니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그렇지 못하도록 온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하게 해 주셔서 우리 민족의 정치가 모두 잘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권자는 하늘이 내지 않음이 없다하셨으니, 그들을 냈으니 그들의 정신머리를 항상 돌려주시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만 맡기고 살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늘 맡기고 사니 모두 잘되고 형통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모든 일들이 많습니다. 흑암의 세계, 흑암의 종교들이 많아서 많은 생명들을 괴롭히고 있고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오니, 이들이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생명 쪽에 있어서 모든 사망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섭리의 사람들, 시험 든 자들, 모든 어려움을 겪는 자들,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다 손을 대지 말며, 하나님께 스스로 굴복하게 해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께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였으니 정녕코 그리 될지어다. 그리고 만군의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 섭리사의 할 일을 척척 급히 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풀이 없으니 이들에게 손을 각각 대며,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할 것을 코치하며 다닙니다. 많은 생명들로 벽적거리고, 인구름을 만들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니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고, 신부들의 사명을 다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항상 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결국은 민족이 평화의 세계로 되어 가는데, 이것은 내 뜻도 조금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들어있어서 그리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삶을 이루게 해 주시고, 이제는 제발 좀 구시대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주하거나 불신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그 입들을 막으사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고 감히 책망하고 뭐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기성들이 하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성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이 이곳으로 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우리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이들에게 주시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해 주고, 사탄의 생각에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펴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우리 섭리의 나라들을 축복해 주시고, 각 민족의 그 교회와 모든 지도자들을 축복하사 온전한 역사를 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할 일들이 이 달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게 해 주시고, 부지런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오 없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날을 정했어도 이들이 준비하고 예비해서 맞게 해 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이끌게 해 주시옵소서. 이달에는 많은 큰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집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도 큰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때는 많은 생명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가 긴히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게 해 주시길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상함이 없게 해 주시고, 모든 알지 못하는 흑암의 세력에서 흔들지 못하도록 먼저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계획이 깨어지고 깨어질지어다. 모두 파괴되고 파괴될지니, 그 행위가 온전치 못하니 하나님이 다 파괴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행하심이 절대 진행형이니, 그 일들이 그 생각들이 지상에 지금 펼쳐가고 있고, 하나님 보낸 주로 인해서 그 일들의 반응을 보이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기타의 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정상적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감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날마다 튼튼한 몸으로 영광을 돌리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행한 대로 갚아 주고, 행한 대로도 받는다. 이것은 천륜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삶의 순리의 법칙이다. 공의의 법칙이다. 목적을 이루는 역사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은 인생들을 창조해 놓고 해당되는 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모든 자들은 행한 대로 받기 때문에 악인도 악하게 행하면 악한 대로 얻고, 선하면 선한 대로 얻는다.
3. 모든 세계의 법칙은 일일이 옆에서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아예 그렇게 행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놓았

다. 그러나 사실상 사람들은 알면서도 제대로 행하기가 어렵다.

4. ‘절대성’이라는 법을 갖고 행한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행하는 만큼 ‘절대성의 목적’을 이루게 되고, 얻게도 된다. 조금 행하면 조금밖에 못 얻는다.

5. 사람들이 어렸을 때도 알지만, 크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러다 인생의 해가 지게 된다. 그러나 완벽하게 알고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얻고 살게 된다.

6.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조금씩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삶의 길이 되고 자기의 삶의 뜻을 깨닫게 된 자들은 계속한다.

7.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낙(樂)으로 삼고 산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을 이루며 사는 것을 자기 낙(樂)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8. 주는 대로만 먹고 살지 말고, 만든 대로만 쓰지 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9. 여러 가지 개성대로 마음도 다르지만, 실상은 좋고 나쁜 것이 있다. 자기의 눈높이, 생각 높이, 삶의 높이로 만족을 하며 살지만, 그것이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10. ‘표상’을 <하나님의 절대성>에 두고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어떤 목적이나 이상을 이루는 것도 막연하다. ‘무엇을 하고 사느냐?’ 하며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인생의 해가 넘어간다.

11. 사람들이 날고 기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고 행하면서 하신 것>이 가장 표상이 된다.

12. 자기 나름대로 천국을 이루며 산다고 하고, 사는 맛을 각각 느끼면서 산다.

13. 사람들은 ‘자기 생각, 목적,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며 낙으로 삼고 산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기 생각을 이루며 생각한 대로 산다.

14. 솔로몬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첨단의 지혜>로 생각하며 살았다.

15.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았다. 왕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이다.

16. 솔로몬은 일개 나라의 왕을 했지만, <주>는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 주관권의 왕을 하며 산다. 솔로몬은 3천 잠언을 썼으되, <주>는 5만 잠언을 쓰고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

17. 주는 ‘뇌’로 잠언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계속 빼낸다. 잠언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자기가 지혜로 깨닫고 아는 말씀’이 있다.

18.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리면서 오래 살기를 원한다. 나라를 막론하고 잘 먹고 잘 지내며 세상살이를 보고 들으며 오래 살기를 원한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지만 ‘한 가지 모순’은 오래 사니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힘들고 아프고, 늙으면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게 되는 것이다.

19. 육신이 오래 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오래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면, 그 육체의 생각과 소망을 육체로서는 다 못 이루니까 혼의 세계, 영의 세계로 이루는 길밖에는 없다.

20.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때에 오래 살 수 있다.

21. 하나님도 누리시는 복 중의 하나가 <오래 사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오래 못 살고 내년에 죽는다면 재미
가 없을 것이다.
22.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멋있어도 얼마 안 있다가 죽는다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50년, 70년씩 산다고 하면서 그 희망으로 살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이다.
23.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오래 사는 데에 있어 최고의 성공이다. 그 나라에 가서 살면 이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천 배, 만 배 좋다.
24. 월명동에서 빨리 가라고 하면 착잡한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듯, 한 번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돌아오기가 싫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도 계속 그것만 먹으면 죽듯이, 월명동에서 만나기만 하고 이야기만 하다 보면 우리 신앙도 죽고
나아가서는 삶이 죽는다.
25. 그 날을 위해 준비하고 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이다. 재벌도, 정치가도, 종교인들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도,
팔방미인이라도 그 나라를 가기 위해 준비하지 않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26. 죽음의 세계,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로 가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거기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과거에 재미있게 살았던 이상세계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한다.
27. 끝이 없는 완전한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1분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세계다.
28. 많은 재벌들, 정치인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 종교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지금
도 몸부림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고 있다.
29.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혀를 바스락바스락 깨물고, 자기가 부서지도록 들이받고 하는 정도다. 갖은 짓을 다 해서
자기 영을 없애는 방법을 최고 극적으로 생각하며, 최고의 몸부림을 친다.
30. 하나님은 “아무리 원수 짓을 하고 또 해도, 그를 지옥에 보내는 일에는 협조하지 말라.” 하셨다.
31. 지옥에 보내면 인간은 해 줄 것을 다 해 줬다고 할 정도까지 못 했으니,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 줄 것을 다 해 주셔서 더 이상은 생각도 안 하시고, 마음도 아프지 않으시다.
32. 하나님은 “지옥은 영혼이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다시는 나올 수 없다. 그러하기에 내 사랑하는 자, 사랑 덩
어리가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데에 거든다면, 잔인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지 않겠느냐.” 하셨다.
33. 신앙의 싸움을 하라. 우리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적을 살려 주면
서 했듯이 맛있는 역사를 펴는 것이다.
34.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행위대로 갚아 주는 법칙의 세계다. 누가 어떻게 될지는 상관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일만 열심히 하라.
35. 모든 역사를 보고 시대를 볼 때,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6.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쫓아다니는 때가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때니, 이제는 신부가 남편을 좋아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책임을 다할 때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15년부터 그와 같이 가고 있다.
37. 교역자들끼리 하나 되어야 한다. 화목해야 하고, 전환을 싹 해야 된다. 관리가 허술하면 안 된다.

38. 십자가를 저 주고 하나님이 할 것을 다 해 준 때부터는 <심판>으로 간다.

39. 주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울에 의를 달고 행한 일을 달아서 부족할 때에는 그대로 저울추가 기울어져서 사망으로 넘어가고 떨어진다.

40. 문종이, 휴지 쪼가리가 한 번 불타면 다시 복직을 못 한다. 섭리사도 따라오다가 한 번 깨진 사람은 다시 복직하는 것이 100:1 정도밖에 안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자에게 행한 대로 주고, 행한 대로 갚아도 주고, 전체가 그러하니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리되게 해 주시고,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그 하는 짓에 따라 어떤 자는 병으로, 어떤 사람은 불의로, 어떤 자는 악으로, 어떤 자는 안 되게, 어떤 자는 경제로, 각종으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만 하면 행하는 대로 경제도, 행한 대로 영도 육도 계속 축복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이 주일에도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간 따라 행하는 대로 급여를 주듯이 준다고 했습니다. 행하는 대로 이들은 되오니, 조심치 않고 행하면 역시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두 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함께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잡아가는 흑암과 마귀와 귀신들을 내가 심판하고 모두 쫓아내노니 들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고,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고, 섭리사를 뛰고 달리는 자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하고. 행한 대로 받으니 조심해서 스스로 행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공적인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지켜 주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일들은 성령이 은혜와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만물이든 사람이든 행하는 대로 되니 과거도 우리가 본 바요, 지금의 현실도 그러하다.

2.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더욱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3.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성서의 모든 것을 봐도, 사람이 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행하는 대로 되고, 행하는 대로 산다.

4. 아담과 하와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 대함을 받고 시대의 사망길로 가는 자가 되었고, 그 자녀권인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행하는 대로 되었다.

5.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그 역량을 가지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행하는 대로 축복을 받았다. 그 후로 사망권의 세계를 이기고 선(善)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 왔다.

6. 성서를 읽어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역사의 기틀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편 역사가 나온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더욱 선악이 구분된 것을 알 수가 있다.

7.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이루어지지,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8.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이룬 터전 위에 2천 년 역사를 썼고, 또 그 터전 위에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었다.

9. 보다 큰 역사를 보면 '보다 구시대'와 '보다 새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가인적인 역사'와 '이방의 역사', 그리고 '보다 아벨적인 역사'와 '보다 하늘의 역사'로 구분이 되며 역사가 흘러왔다.

10. 이 시대도 '우리들이 행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뜻도 이루며 영원한 역사를 이루고 간다.

11.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새로운 역사를 병행하며 이루며 사는 것을 모르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다.
12. 한 시대의 역사를 펼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역사를 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 시대를 따라 역사는 구시대의 역사를 계속 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만 계속 펴지 않는다.
13.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고 갈 때는 시대마다 완전히 드러난다. 그러나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메시아를 믿는 똑같은 세계로만 생각한다.
14. 주인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도 시대마다 바뀐다. ‘구약’은 구약 식으로 뜻을 이루었고, ‘신약’은 신약 식으로 뜻을 이루었다.
15. 전환기를 맞지 않은 역사는 그대로 연속해서 가며 그 주관권에서 더 잘 믿고 더 잘하고 역사를 더 이룰 뿐이다. 그러나 시대를 전환할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뒤바뀐다.
16. 역사가 뒤바뀌는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때>다.
17. 한 나라 정치의 세계도 주인공이 바뀌면 같은 나라를 끌고 갈지라도 다르게 간다. 한 나라의 주권이 바뀔 때는 백성은 안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주인공이 바뀔 때 백성도 바뀐다.
18.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전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 거듭나고 새롭게 바뀐다.
19. <말세 때>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준다. 길을 가다가 차원이 높은 ‘갈래 길’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길은 새로운 사람이 인도하기에, 그 길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
20.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자는 인식을 잘 시켜 줘야 된다.
21. 새롭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 전에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혼자 생각하면 혼동이 오지만, 새로운 주인공으로 나타난 자의 말을 듣고 가면 새로운 길로 가진다.
22.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게 된다.
23.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펴면서 “많은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주라 하리니, 나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나만 따라오라.” 하면서 혼동하고 있는 자들은 가르치며 가셨다.
24. 처음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몇몇 사람들만이 가고 있으니, 가는 길이 맞는지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보여 줄 것이 없었다.
25. 기성 목사들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 생각이 안 맞아도 믿고 가야 한다며 합리화시키며 얘기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양도 창조하셨으니 태양이 가지 않도록 창조하신 것이라 말하면 성경을 불신하는 자요, 성경을 떠난 이단의 이론이라 했다.
26. ‘천동설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천동설로 가르쳤다. 그러나 ‘지동설 시대’에 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롭게 가르쳤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일들>이다.
27. 기성은 하나님이 지구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둔 것에 대한 비유도 그대로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사람’, 곧 ‘아담과 하와’를 말한 것이라고 한다.

28.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인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고 평생 지낸 사람들이 있다. 구약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약인들도 몰랐고 신약인들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29. 6천 년 동안 발달된 짐승도 그렇게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사람이 정말로 무능하다.
30. 모를 때는 평생 모르고, 역사가 가도 모른다.
31. 지혜로운 자는 잠언의 비유를 깨닫게 되리라 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잠언이 비유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것이다.
32. 불을 가까이하는 자는 불로 데임을 받는다. 이는 <사랑>이 ‘불’ 같으니, 사랑을 너무 가까이하는 자는 사랑으로 상처가 난다는 것이다.
33. 성경은 거의 비유로 말씀했다. ‘나무’로 비유한 사람은 그 나무의 형태와 모양과 특성이 있기에 나무로 비유한 것이다. ‘바위’로 비유한 사람은 바위의 특성을 가졌기에 그것을 두고 비유했다.
34. 예수님을 <흰 돌>로 비유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준다고 했다. <이긴 자>는 ‘신앙으로 이긴 자’를 의미하며, <흰 돌>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비유한 것이다.
35. 성경에는 사람을 두고 비유한 것이 만 가지도 넘는다. 하나님을 비유한 것도, 예수님을 비유한 것도, 성령님을 비유한 것도 300가지씩 된다.
36. 항상 거기에 해당되는 비유를 한다.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문학적인 세계의 것을 풍부하게 쓰시면서 성서에 말씀하셨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일부만 안다.
37. 일부만 알아서는 역사를 못 편다. 일부 나무 기둥만 가지고 한옥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해당되는 세계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서의 문제를 전부 알아야 그 시대 역사를 펴 나갈 수 있다.
38. 성경을 비유로 못 깨달아서 성경을 못 푼 것이다.
39.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은 미리 풀어 놓았다가 메시아가 오면 “아멘.” 하며 따라갔어야 했다. 그와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주니 의심 된다고 따르지 않았다.
40. 기본적인 것을 배운 것 위에 메시아는 그 시대 뜻의 말씀을 전해 주고서 역사를 하나씩 펴 나간다.
41. <예수님>은 땅에 있는 육신이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갔다. 신이 강림하니 보이지 않았다.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역사를 펴 나가셨다.
42.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만 기다리며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매일 울며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속상하시니 대답 한마디 안 하신다.
43. 말을 안 하는 것이 무섭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사람들은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 나간다. 그러다 지옥으로 가 버린다.
44.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죄’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음’으로 사망권으로 간다.
45. 이 세상에서도 많은 자들이 모두 살창 없는 지옥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서 이 정신

병들을 다 고쳐 줘라. 그래야 나의 뜻을 펼 수 있다.” 하셨다.

46.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바쁘다. 어린아이조차도 바쁘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47.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도 한 남자를 사랑하면 아무리 바빠도 기어이 시간을 빼서 연애하고 같이 밥 먹고 더 빨리 된다.

48.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빠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산다.

49. 교회 가서 하는 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일하면서 하나님을 부르 고, 일하면서 노래도 하고, 일하면서 말씀에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50. 선생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을 생활 가운 데 믿고 사니 하루 종일 믿게 되는 것이다.

51. 생활에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고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시간 이 별로 없다.

52. 하나님과 계속 사랑으로 가면, 사랑으로 갚아 주신다.

53.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까지도 나를 사 랑하게 되어 수만 가지로 사랑을 받게 되었다.

54. 세상에서는 이성 사랑에만 만족하고 생활하는데, 그것은 한 가닥의 사랑에 불과하다.

55. 생활 전체가 하나님 사랑의 세계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직장에도 다니고 공부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랑이 불붙어서 모든 일을 해 나가면 지겹지 않게 할 수 있다.

56. 아무리 부자라도 속 시원한 기쁨이 없으면 곤고함에 빠진다.

57.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자기가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 센터>는 해결 된다.

58.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즐거워하며,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인생의 허무도 없고 만족하고 영원하다.

59. <젊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성공 중의 하나다. 재벌들이라도 이 성공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선생 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60. 죽은 사자보다 산 파리가 낫다. ‘살아 있는 것’이 그리도 크다.

61. 청춘이 가는 것도 얼마나 맛있는 역사인지 깨달아라. 그러나 구원받아 놓지도 않고 큰소리치는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주 셧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다니까 하나님만 올 것을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6천 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 있으니까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 불신한 죄 때문에 6천 년 동안 통곡의 벽에서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다리며 울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 또 하늘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나를 불신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각종으로 각양 각색의 비난을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믿고 나를 좇는 사람만 향해서 말하며 왔습니다. 이리므로 민족과 세 계에, 60개국 나라에 하나님 복음을 줘서 영력하게 하나님 뜻을 펴 가고 있습니다. 구시대 사람은 늙어서 이제는 욕도

않고 불신도 않고 다 끝나고 이미 무덤을 남기고 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주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구원하나 못 하나 봐라. 병든 자도 구원하고,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인생길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이 시대도 잘 믿어서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해 주고, 구원하러 왔으니 누구든지 내가 지구촌에 있는 75억 다 구원할 수 있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제 그냥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해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펴 나가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 줬습니다. “이제 그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니 차고 넘치는 교회들이 다 될 것이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부름을 받고, 때가 되면 철새들이 날아오듯이 여기저기 많은 생명들이 올 것이니 잘 대해 주고 잘 다스리고 잘하라. 하나님이 보냈으니 잘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온 지구상에 있는 자들,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희망으로 살게 됐으니 오늘도 해됨이 없게, 상함이 없게 해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꼭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모든 자에게 날개를 펴사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악 간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와 악령들은 다 없애 주시며, 다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다 유익되게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받으니 잘 행하라 했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행하라 했습니다. 모두 서로 의논하며 행함이 영원할지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영원하고 영원할지이다. 아멘.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시간>은 앞에서는 못 잡는다. 항상 뒤에서 잡는다.
2. <시간>은 쫓아야 한다. 시간을 쫓지 못하면 시간에 쫓긴다. 시간 앞에 할 일을 놓고 뒤에서 쫓아야 한다.
3. <새벽>에는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새벽을 깨운 자들’이 하나님의 좌정하심을 발견한다.
4.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들리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는다.
5.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위대로 들러오고, 행위대로 보이고, 행위대로 그때마다 상대의 세계가 교차된다.
6. <하나님>을 지켜야 ‘시간’을 지킨다.
7. ‘세상 사람이 시간을 지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지키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주권권의 생명의 역사의 일들이다.
8.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지켜서 세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권에 있는 자들이 시간을 지키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
9. 지혜는 판단력이다. 순간의 지혜와 순간의 판단력이다.
10. 5분의 대화에서도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 늘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현실에 임하면 잊어버린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11. <성령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성령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12. 행한 대로 갚아 주는 것이 <천륜의 법칙>이요, 가장 <공의로운 법>이다.
13. 새를 하나 그리더라도 주둥이를 생긴 대로 2cm로 그리지 않고 5cm로 그린다면 일반 새가 아니라 물새가 된다. 또 구부러진 유턴 부리로 그리면 독수리가 된다.

14. 생긴 대로 정확하게 그려야 정확한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갇아 주시는 존재자 하나님이다.
15. 행하는 대로 안 갇아 주고 더해 주거나 덜해 주는 것은 마치 사람을 그리는데 눈을 하나만 그리고, 콧구멍을 하나만 그리고, 손을 하나만 그리며 나머지는 빼는 입장이 된다.
16.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사진을 찍듯이 모양대로 형상대로 해야 된다.
17. 어느 때는 ‘더할 때’가 있고, ‘곱할 때’도 있다. 심정에 맞고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고 할 일을 꼭 한 자에게는 ‘곱하기’로 갇아 주시기도 하시고, 심정을 상하게 하거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빼기’로 갇아 주신다.
18. <사랑>으로 대할 때, 배로 갇아 주시고 곱하기로 갇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19. 2015년까지는 하늘과 모든 자가 <연애하는 기간>이었다. 연애 기간은 남자는 80% 정도, 여자는 20% 정도만 해도 잘된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휴거되어 결혼한 것과 같으니, 그때부터는 ‘여자가 행하는 대로만’ 해 준다.
20. 행하지도 않았는데 해 주면 안 된다. 특히 ‘하나님께 행하는 대로만’ 대해 준다.
21. <휴거 전>에는 ‘연애’하는 기간, ‘하나님이 쫓아다니는 기간’이었다. 일단 모든 것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마치 연애할 때 남자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과 바다를 건너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자 했으나, 결혼한 후로는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격이다.
22. 2015년부터는 하나님이 “그동안 해 준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는 너희가 행해야 될 때다. 신부들이 알아서 행하라. 휴거까지 다 시켜 주었으니 더 해 줄 것이 없노라.” 하셨다.
23. 행하는 대로 영도, 육도 갇아 준다.
24. 올해는 차원 높은 휴거를 확 이뤄야 된다. 천국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 그 세계는 거의 보지를 못한다. 그러니 본 자가 말해 줄 때 확실히 믿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5. 2015년에 휴거가 시작되며 하늘과 결혼 생활에 들어갔다. 결혼식을 하고 사랑에 더 불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랑이 식어 가서 연애 때만도 못한 사람도 많다.
26. 세상을 봐도 연애 때는 엄청나게 몸 단장, 마음 단장, 행동 단장까지 한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오히려 사랑이 식어 가니 문제다.
27. 선생은 테니스 칠 때 다리가 아프고 절뚝거리도 안 하겠다 하지 않고 또 한다. 애인이 있으면,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자꾸 할 때 좋은 것이다. 안 하면 성령도, 따라오는 신부들도, 사람들도 재미없다 하니 아픈 다리를 끌고도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한 마디 코치’를 해 주신다.
28.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이기셨다. 상대가 약한데 이기는 것은 재미가 없다.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국을 이겨야 볼거리가 있다.
29.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표적의 역사요, 볼거리가 있는 것이다.
30. 사람들은 한 가지 코치를 해 주면 또 “이때는 어떻게 하지요?” 한다. 끝날 때까지는 그 코치를 적용해야 한다.
31. 만물 언어를 읽는 것을 배우면, 상천하지 최고의 세계적인 통역관이 된다.

32.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듯이, <만물 언어>는 이 시대 천주적인 글을 만든 것이다. 온 지구상에 서로 통하는 글을 만들어서 50개국의 사람들에게 보여 준다.

33. 만물 계시 중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은 ‘구름’이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

34. 만물 계시를 읽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구름은 여러 가지 형상 세계로 일어난다. 그러나 읽을 사람이 있을 때는 읽을 사람에게 해당되게 보인다.

35.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형상의 구름이 오고 간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특히 만든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

36. 만들기도 하지만,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조종하시는 하나님이다.

37. 만물 계시를 읽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잘하는 일이다.

38. 꿈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영의 급’도, ‘육의 급’도 초등학교밖에 안 된다.

39. 조금 행하면 조금밖에 못 받고, 많이 행하면 많이 받는다.

40. 사람에게도 심는 대로 거두고, 대하는 대로 거둬들인다. 잘 대하고 잘해 줘야 한다. 한 번만 잘 대해 주고 그다음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

41. 하나님은 한 번 찍으면 정녕코 행하신다.

42. <주의 눈>은 하늘에 붙어 있기에 눈이 높으시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기에 보통으로 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43. 권투 선수는 때리는 것만 스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도 스틸이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환난도 없으면 스틸이 없다. 찬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몸부림치고, 싫은 소리도 들어 봐야 스틸 있는 것이다.

44. 특기가 있으면 많이 하라. 전도 특기, 관리 특기, 배우는 특기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으니 이들이 듣고 깨닫고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학생들 모임이 있어 새벽에 모두 달려와 여기 한데 모였습니다. “많이 배워야 된다. ‘신학’ 하면 신을 배우는 학문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귀신 신’ 자를 쓴다. 그러니까 귀신 세계만 역시 더 득실거리게 하고서 한다. 완벽하게 배워야 돼. 무한히 배워야 돼. 엄청난 것이 있어요.” 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이다. 오늘 아침에 말씀 들은 한국을 중심한 온 세계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움과 함께하고.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대로 주니까, 꼭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대로 줘라. 행하는 것 외에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된다. 버릇이 나빠져, 행하는 것보다 더 주면. 또 덜 주면 감수성에 쓰러져. 그러니까 절대 감수성 나지 않도록 행하는 만큼은 꼭 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한 주의 마지막, 전체 뚜껑을 덮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미(美)다. 미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이다. 아멘.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이다.

2. 예수님 시대에는 ‘육적’으로는 부활이 안 되고 ‘영적’으로만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주가 ‘육적’으로 살아났으

니 ‘육적’으로도 부활하고, ‘영적’으로도 부활했다.

3. 이 시대는 구약 시대, 신약 역사를 똑같이 재현하지 않는다.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역사다. 두 번을 똑같이 지나가는 역사는 없다. 각각 따지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지고 가는 것이다.

4. <역사의 주인>이 나타나야 역사를 펴는 것이지, 아무나 펴는 것이 아니다.

5. <역사>도 하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다.

6. 시간적으로 따지면 주는 새벽 4시에 ‘육신’이 태어났고, 새벽 4시에 ‘부활의 역사’도 일어났다.

7. 많이 알아야 지식이 풍부하다 하고, 박식하다 한다. ‘하나’ 더 알 때 엄청나다.

8. 신앙생활도 아는 자는 자꾸 하고 싶고 모르는 자는 하기 싫다. 알고 모르는 것이 그렇게 크다.

9. <부활절>은 좋은 기쁨의 날이다. 사망권, 죽음의 곳, 묶여있던 곳에서 나온 날이니 얼마나 좋으냐. 고로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그 주간이면 주일도 ‘부활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10. 죽음과 삶의 세계에서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불가능하다 할 정도다.

11. 소나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려면 불가능하다. 설 죽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만, 아주 죽었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없다.

12. 예수님은 ‘육적 부활’을 못 했다. 워낙 찌르고 워낙 때리고 워낙 두드려 맞아서 살 수가 없이 죽었다. 3일 지나고 부활 때가 왔어도 영만 살아났지, 육은 못 살아났다.

13.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맞아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예수님을 안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지도 않고, 3일 동안 옥에다 가둬놔서 예수님도 살아났을 것이다.

14. 그때는 사형을 시키는 시대였다. 고통만 주는 ‘환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죽음을 놓은 ‘사형의 십자가’였다.

15.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 3일이 되었을 때, ‘영’은 사망권에 있다가 생명권으로 나와서 살아났다. 부활되었다. 그러나 ‘육신’은 영영 죽고 못 살아났다.

16.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도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으며 왔다.

17. 이 시대는 사형을 시키는 시대가 아니라 고통을 받고 시대의 죄를 대신하며, 용서해 주며 가는 시대다.

18. 이 시대의 십자가 형틀은 ‘감옥의 형틀’이다. 감옥의 형틀에서 많은 자들이 죽어서 끝났으나, 주는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다.

19.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은 <양면 예정>이다. 잘못하면 죽는 것이고, 잘하면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한다며 왔다.

20. 중국에서 옥에 들어갔을 때 “고생돼도 생명길을 가야 한다. 고생이 안 되고 죽음 길을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21. 고통을 겪을 지라도 생명의 세계로 가야지, 고생이 안 되어도 죽음의 길로 가면 안 된다. - 이는 수백 잠언보다 더 크고 깊은 말씀으로 생활 속에 우리가 늘 당하는 일들이다.

22. 고생이 되어도 완벽하게 생명이 뺏기지 않는 길을 가야 한다.

23. 사형을 시키는 세계라면, 아무리 몸을 단련하고 운동을 해도 사형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고생하고 끝나는 세계인데, 정신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고생하다가 관리를 못하면 죽게 된다.

24. 감옥은 때려서 혹은 누가 괴롭게 해서 고통이 아니고 '간혀 있는 자체'가 고통이다.

25. 선생은 '뇌 연구'를 많이 했다. <뇌>는 생각하는 대로 가진다. 그래서 생각을 잡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돌렸다. '나는 하나님의 아내이니 안에 있어야 돼' 하며 좋은 쪽으로 뜻을 돌렸다.

26.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더 되기도 하고 고통이 덜 되기도 한다.

27. 꿀벌이 벌통을 떠나면 꿀을 먹고 살 데가 없다. 벌은 체질적으로 꿀을 안 먹으면 죽는다.

28. 섭리에서 힘들고 어렵다며 나간 사람들은 영적인 메마름을 받게 되어 있다. 사막 땅, 모래땅에서 식물이 말라있는 것처럼 역적인 고갈, 영적인 가뭄이 들었다.

29. 영이 잘 돼야 육도 잘 되는데, 영이 잘못되니 육도 잘못되어 신음소리가 나고 각종 고통을 겪는다.

30. 육적 감옥에서 고통을 겪으며 힘들고 괴롭다고 목매달아 죽기도 한다. 하물며 영혼의 지옥, 영원한 죽음의 세계는 어떠하랴. 육적 감옥의 고통은 영원한 지옥 고통의 100만분의 1도 안 된다.

31. 선생은 감옥에서 일생 가운데 최고 많은 글과 잡언을 썼고, 삼위와 최고 많이 대화를 하고, 최고 많이 영계를 오고 가며 보고, 최고로 많이 생명들을 관리를 해 주었다. 또한 거기서와 같이 시간을 철저히 지킨 적도 없었다.

32. <부활의 세계>를 인식하고 알아라.

33.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의 주관권에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고통 중에 좌절치 않고 견디고 온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34. 나와서 제대로 살아나는 기간이 6개월 걸렸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은 그렇게도 쑤시고 아프다. 피가 안 통하다가 통하니 그러하다.

35. 우리는 10년의 고통을 겪으면서 좌절치 않고 끝끝내 살아나왔다. 겪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어도 좌절함이 없다.

36. 10년 동안의 십자가 고통은 결정되어 받고 끝났다. 이제 다른 것은 10년 동안 고통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 고통이 와도 순간순간 올뿐이다.

37. 죽은 자가 산 것이 신기한 것같이 우리가 무한한 고통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신기한 일이다.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 크고, 영적으로 살아난 기쁨, 육적인 고통에서 살아난 기쁨, 살아남아진 기쁨이 크다.

38. 10년 기간에 많은 생명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벗어나 사망 길로 가기도 하고, 오지 못하기도 하며, 고통을 못 견디고 죽어나갔다.

39.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산 자>가 되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도 주신 것이다. 죽어나간 자들은 교회 선물을 못 받았다.

40. <산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무한한 것을 주신다. 성자는 특히 휴거되었다고 결혼해서 ‘사랑의 짝’이 되었다고 많은 것을 주고 가셨다.

41.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동안 한 것을 계속 받으며 간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알 것이 많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중에서 우리가 살아나왔습니다. 10년이나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끝끝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부로서 배신치 않고 사랑으로 남아졌으니, 우리는 육신 일생 크나큰 축복을 받고, 영혼의 영원한 세계를 부활함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하나님의 육신으로 쓰시는 것을 더욱 알아야 되겠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됴를 깨닫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한국을 중심한 온 지구상에 있는 시대를 좇는 모든 나라들이, 그 뜻을 깨닫고 오늘의 행사를 맞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축복해 주심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부활된 이들 위에와 휴거된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면 한 번에 살아나고 끝나겠지만, <생활의 부활>이기에 하나하나 알고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
2. ‘실천해서 알고 행한 것’만 <부활>된다. 나머지는 백 년이 가고 천 년이 가도 안 된다.
3. <생활의 부활>이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행해야 된다. 하나하나 행하고 고치면서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다.
4. 100가지를 두고 볼 때, 100가지를 다 알고 행한 사람은 <완전한 부활>이 되었다고 본다.
5. 육인체를 보고, 영인체나 혼인체를 보면 부활 못 된 사람들이 보인다.
6. 어떤 사람은 얼굴이 흉한 채 머리를 안 감고 긴 머리로 다닌다. 자를 것을 자르고, 깎을 것을 깎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 준 것이다.
7. 옷이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라면 신부의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옷을 못 입은 사람은 아직 부활이 덜 된 것이다.
8. ‘죄’와 ‘때’다. 죄는 마치 몸의 때와 같다. 때를 없애듯이 하나하나 자세히 없애라.
9. 몸의 때를 미는 것도 30~40분 정도 부지런히 세밀히 밀어야 골고루 밀어진다. 손바닥만큼의 때만 남아도 그 ‘때’는 그냥 있는 것이다. 물만 묻힌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10. 선생은 ‘때 밀듯 하라.’ 는 말씀을 따라 수십 번을 그와 같이 해보니, 혼자서는 힘들고 때를 미는 전문가에게 밀어야 닦여졌다. 전문가들은 지체를 하나하나 외워서 밀기 때문이다.
11. ‘죄의 때’도 마찬가지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를 없애려면 세밀하게 해야 된다.
12. 우리가 행동하는 만큼 죄의 가짓수가 있다. 행동에서 빗나가는 것이 모두 죄다.
13. 몸을 십만 평으로 본다면 십만 평에 손이 다 가야 된다. 골고루 전체를 틈이 없이 닦아야 한다.
14. 때를 닦고서 다시 때를 닦아도 때가 많이 나온다. 온 몸에 때가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일일이 손이 다 가야 닦여진다.

15. 사람들은 대충대충 닮고 끝낸다. 때를 미는데 부분적으로 밀면 안 된다.
16. 글씨를 쓸 때도 한 자만 틀려도 내용 전달이 안 된다. 때와 죄도 그와 같다.
17. 메시아에게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18. <주>가 수시로 만나 주고, 수시로 모임도 하고, 수시로 대화해 주지만, 그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메시아를 만날 일이 몇 번도 없다. 메시아 만나기를 동네사람 만나듯 하니 속상하다.
19. 하나님도 만날 만한 큰 사건이 없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자연을 통해 지시만 하신다. 영원히 만날 만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큰 존재자이시다.
20.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육적 부활'이라면 순간 살아나는 것만 하면 끝난다. <온전한 부활>이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행하면서 이루고 존재시키고 유익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곧 '삶의 부활'이다.
21. '사망권에서 나오는 부활'은 순간에 나왔지만, '생활의 부활'은 오래 걸렸다.
22. <생활의 부활>을 해야 한다. 하나하나 알고 행하는 것만 부활된다.
23. 아는 단계의 부활은 알기만 하고 끝난 것이다. 이는 '이념적 부활, 정신적 부활'이다. 행해야 '육적 부활'이 된다.
24. "능력으로 나아라." 하고 이념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의 기쁨으로만 해서는 또 아프다. 뼈가 틀어진 것은 뼈를 맞춰 놓아야 아픈 것이 고쳐진다. 돌아가면 또 맞추고, 돌아가면 또 맞추고 계속 해야 된다.
25. 그냥 산으로 놔두면 영원히 산이다. 그러나 산을 파고 개발해서 곡식을 심고 농사를 지으면 평생 동안 밭으로 남는다.
26. 절대적으로 행치 않으면 안 된다.
27. 기독교가 아무리 큰소리쳐도 이념으로는 마음의 위로가 될지라도 실제로는 아니다. 선생은 이미 60년 전에 이 모든 비밀을 알고서 30년, 40년 전부터 외쳐왔다.
28. 부활을 하나하나 배워라. 절대 믿고 행치 않는 자는 '믿음의 부활을 안 한 자'요, 기도를 안 하는 자는 '기도의 부활을 안 한 자'요, 성령과 대화를 못 하는 자는 '아직 연결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요, 사랑에 대해서 근본을 모르는 자는 '사랑에 죽은 자'요, 사랑을 제대로 실천 못하는 자는 '죽은 자'다.
29. 영이나 혼을 보면 얼마만큼 부활 되었는지 알 수 있다.
30. <부활>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되어야 한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돌을 쌓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샘을 파서 연못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잔디밭을 갖추었다. 하나하나 한 만큼 만들어져서 부활되었다.
31. 부활이 안 된 자는 마치 자연성전에 돌만 심고 나무를 안 심어서 삭막한 것과도 같고 꽃이 안 피어서 바위절경만 될 뿐인 것과도 같고 운동장이 없어서 밭으로, 산으로 울퉁불퉁 뛰어다니는 격과도 같고 잔디밭이 없어서 앉을 장소도 없이 삭막한 것과도 같다.
32. <부활>이란 100%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33. <성지 땅 하나님의 전>같이 부활을 시켜라.

34. 기성의 세계든, 불교든, 유교든, 어떤 이방의 종교든, 기성에 해당되는 이단의 종교든 제대로 부활을 해서 메시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35. 누구든지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의 구원을 받고 살려면 <주>를 메시아로 믿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이 시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최고 마지막 역사인 '사랑의 휴거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36. 2015년에 성자 떠나신 휴거 날 이후로는 신부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주를 믿고 좇고 따라야 한다. 그 전에 하듯이 하면 '사랑의 휴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37. 지금은 휴거되었기 때문에 영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다. '여기 있는 영들'은 그 육신이 아직 휴거를 이루고 중이다. 그러나 '혼'은 옆에 있다.
38. 어떤 사람이 별장을 지으면서 우선 천막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자. 아직 천막에 살고 있으면 아직도 집을 안 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막도 사라지고, 그 사람도 사라졌다면 집을 다 짓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다.
39. <휴거된 영들>은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보면 시골에서, 풀숲에서, 아주 구질구질한 천막을 쳐 놓고 사는 것과도 같다.
40. 영계는 깔끔하고, 깨끗하고, 빛이 비취고, 평안한 음악소리가 난다. 하나님을 모시고 직접 사는 그 세계에서 천층 만층의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삶에 바쁘다.
41. 육신이 사는 이 세상은 고달픈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42. 영은 차도 필요 없이 '자기 몸'이 차가 되고, 비행기가 된다. 영계는 <생각 실상 세계>다. 어디를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가 있다. 영들은 생각만큼 빨리 달리면서 활동을 한다.
43.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가는데, 이를 이루려면 힘들다. 그러나 한 번 이뤄놓으면 월명동과 같이 두고두고 써먹는다.
44. 영혼의 세계도 자기를 위해서 완전히 고쳐버리면, 써먹기만 하면 된다.
45. 밤마다 영계 들어가서 보면 육신으로 안 사귀는 자들은 영으로 봐도 모르고 지나간다. 이 세상에서 사귀는 사람만 알지, 아닌 자들은 영계에서도 남남이다.
46.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 아신다.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하나 사귀고 대화도 해야 알지, 모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귀지 않고 영계 가서는 알지 못한다.
47. 메시아도 하나하나 전도하면서 사귀고, 말하고, 이야기해서 전체 자기 주관권이 되니 아는 것이다. 그냥은 잘 모른다.
48. 정신적, 영적, 육적, 행실 부활은 하나하나 행해야 살아나는 것이다. 지체가 다 불구이면 운동해서 재활하며 하나 하나 다 살아나야 불구자가 아닌 것이다.
49. 제대로 부활이 안 되어 있는 자들은 완전히 빛을 발하지 못한다. 전등이 30개씩 달려있으면 하나하나 전부 끼워서 빛을 비춰야 제대로 살아난 것이다.
50. 자기가 '무엇이 부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른다. 메시아는 안다. 물어보면 엄청난 것이 숨어있다.

51.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구원도 못 시키고, 제대로 말도 못 하는 것이다.
52. 제대로 살아나면 신이 된다.
53. 100% 부활이다. 그래야 100% 완성되고, 100% 얻는다.
54. 인생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드는 일이 할 일이다. 만든 만큼 귀히 쓰이고, 얻는다.
55. 아직도 사망권에 사는 자들이 있으니, 부활을 시켜야 하느니라. 모든 자들은 사망권에 속해 부활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라는 사람을 검토하라.
56. 아직도 부활되지 못한 것 때문에 곤고함을 겪게 된다. 제대로 살아나기까지 곤고함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57.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구시대에서 신시대의 메시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까지 곤고와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 연속 부활되지 못하는 고통을 받게 된다.
58. 연속적으로 부활되지 않으면 부활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
59. 매일 부활돼야 한다. 이같이 하여서 온전한 삶도 이루고, 행한 대로 받고 영도 보다 완전한 영으로서 황금천국에서 누릴 것을 누린다.
60. 완전하게 부활되지 못한 영들이 사는 곳을 보면 보다 변두리, 보다 빛이 약한 곳, 보다 없는 곳에 살고 있다. 완전한 하늘나라 천상천국 황금천국에 사는 영들을 분석해보아라.
61.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더 고통을 받기도 한다.

62. 저마다 부활을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고,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행해야 부활이 된다. 그냥 두면 부활이 안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했으니, 이 말씀을 듣고 부활 될 때까지, 고칠 때까지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듯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이 완전히 되어야 사탄과 싸워서 이기지, 그렇지 못하면 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부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못해서 이기지 못하고 질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도 갖추고 완전히 되어서 그 몸으로 싸워야 생활의 싸움에서 이기고, 사탄과의 싸움도 이기고, 또한 나아가서 인(人)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불구의 몸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다 했습니다. 성한 사람이 이긴다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 육신을 부활시켜서 온전케 해 주시고, 그리고 철인, 강인이 되게 축복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다 그렇게 되고,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모두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뜻을 깨닫는 자들이 될지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애와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에게 모두 함께하고 낫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받고 나아가지 또 개인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때 말씀으로 함께 하사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마.”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신유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과, 우리들의 할 일에 대한 능력을 주셔서 항상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거리 역사를 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부활>이란 ‘생활의 부활’이니, 저마다 꼭 해야 될 일을 해라. 안 하고 사는 것은 죽은 것이다.
2.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시대의 부활>이다.
3.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이 시대 주를 보내고, 그때부터 죽은 역사를 다시 살리는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

4. 구(舊)역사는 죽은 상태에서 지속하고, 새로운 세계는 주로 말미암아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살아있는 역사'다.
5. 잠자는 자 가운데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난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되었다.
6. 사망권의 세계로부터 새로운 역사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한다.
7. 기성은 육신이 살아난다는 아무 필요 없는 주장, 해당도 안 되는 주장, 성경에 있지도 않은 주장을 하며 살아간다.
8. 모르는 자들은 별짓을 다한다. 모르니 허공 속, 함정 속, 죽음 속에서 이것저것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잡는다. 잡은 자체로 죽은 것이요, 잡았다하나 사망의 줄을 잡고 기어이 올라가고 있다.
9. 권투선수가 계속 주먹질하다가 한 방에 쓰러뜨리듯이 좋은 말씀으로 계속 싸워야 된다.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깨달아라.
10. 말씀에 약하면 상대로부터 맞아 죽는다. 죽은 시체로 온 자들이 많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 끌려 다닌다.
11. 예수님이 육신 부활일진대 다시 살아나서 한 일이 무엇인가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살아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다. 이것만 봐도 <육신의 부활>이 아닌 것을 안다.
12. 성경의 누가복음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세히 적어 보낸다 했는데, 그 글에 육신이 살아서 한 일을 적지 않았다. 살아서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13. 메시아가 오면 하늘에서 구름타고 오는데, 왜 그리스도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했겠느냐. 메시아가 죽은 시체로 공중에서 실려 온다는 것이냐. 고로 육신부활이 아니라는 것이다.
14. 성경에 "여자들은 더 좋게 되려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행했다." 하였다. '죽은 시체 부활'이라면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더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15.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면 살아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한 마디만 하고 사라졌겠느냐. 영적인 세계니 '한 마디'밖에 안 한 것이다. '산 사람'이라면 한참 이야기를 했겠지만, '영'이기에 금방 나타났다 금방 사라진 것이다.
16.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바로 가신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부활 하였다면, 젊은 서른넷의 나이에 왜 데리고 가셨겠느냐.
17. 누구든지 영은 육신 쓰고 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갈 곳으로 가야 한다. 각자 해당되는 대로 육신이 죽으면 영이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가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것이다.
18. 사도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살아있었다면 '육신'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셔서 육신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기도 받으라고 한 것이다.
19. 육신이 없으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마디 하고 끝났다. 그 후로 육신 있는 제자를 통해서 오랜 시간 계시하며 메시아에 대한 시대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 줘서 바울이 믿고 눈을 뜨게 되었다.
20. 예수님은 한 번도 육신이 살았다며 나타나지를 않으셨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도 '영'이 갔지, '육신'이 반영된 일은 없다.

21.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의 육신이 오실 줄로 생각하느냐.” 했다.
22. 육신이 살았으면 메시아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중 예수님의 육신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23.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제자들이 매일 보고 좇아다니고 기록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 육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다.
24.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설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도 한 마디 하고 끝났다. 영인체이기 때문에 순간 나타나서 한 마디하고 순간 떠나간 것이다.
25. 말을 잘 하고, 증거를 잘 하고,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나씩 성서를 짚어 근거를 따져서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 된다.
26. 한 종교는 우리가 하는 것을 다 따라했지만, 점점 높은 것을 주장하면 여기를 믿고 따라야 되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27. 특별히 한 종교가 제일 우리 것을 잘 따라오고, 그 다음으로 기성의 모든 자들이 따라했으나 발이 안 떼어진다. 움직이지를 않으니 아무리 해도 입만 아프다. 노인들이 따라하자니 안 되는 것이다.
28. 선생은 50년 전부터 ‘태양아 멈추어라’이 말씀을 전해주었다. 이를 듣고 기성들이 우리를 모두 이단이라고 했다. 그 이후 섭리사를 나간 자들이 이를 가르치니, 그들도 그리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지 않고, 새로운 역사로 바뀌지도 않는다.
29. <새로운 역사>는 시대 하나님 보낸 자가 전한 말씀, ‘태양아 멈추어라’로 시작해서 공중휴거, 심판, 메시아론 등 전체를 다 받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다.
30. <부활>은 ‘해야 될 일’을 꼭 하는 것이 부활이다. 성서의 말씀을 바로 풀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할 때 부활된다.
31. 시도 쓰다가 안 쓰면 죽은 것이다. 다시 쓰면 부활시킨 것이다.
32. 본인이 할 일을 해야 온전히 깨달아진다.
33.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성서를 통해서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요 삶의 부활인 것을 전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다고 기성은 절대시 하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부활의 역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여의도광장 민족광장에서 기독교가 하던 핵심 중심 집회를 안 하게 됐을까. 끝까지 해야 하는데, 그동안도 해 왔는데.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막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니까. 시대 보낸 자로 인해서 “새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시대부터는 못 합니다. 부활 행사를 안 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건의했더니, 우리 시대부터는 부활의 역사 행사를 못 하게 끊어버렸고, 그들 자신들도 못하고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 일의 충격이 오지를 않게 했습니다. 성부성자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자에게 충만 하사, 오늘 부활의 역사가 육신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행해지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활’은 죽은 시체를 살아나는 부활이 아닌, ‘육신의 변화의 부활’이니, 오늘도 변화된 삶을 계속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영원히 빛나고 찬란한 영이 되게 축복 기도합니다. 모두 잘 되고 형통케 성령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니,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과 말하고 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을 못 했을 때 하도록 모든 코스를 정해서 행케 했습니다. 어제도 오는 길에 이곳저곳을 들르게 했습니다. 못 한 일을 해야 한다고, 할 일을 꼭 지금 해야 한다고 들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감동대로 사는 것이 부활되는 시대의 역사니라.” 했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능력

과 권능이 오늘도 이들 위에 함께하고, 섭리의 모든 나라들에게 충만하고, 깨닫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 구체적으로 부활도 설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도 황금천국과 일반 천국이 뭐가 다른지 확실히 알고 증거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가르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신의 모든 능력과 권능이 이들과 모든 시대 말씀을 들은 자들 위에 함께하고, 시대에 어린 영들이 오는데 사탄도 악한 마귀도 손대지 않게 기도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서로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리고 모두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 살아야 하겠사오니, 항상 그리되게 해 주시고,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니 늘 원수시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떨쳐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잘 되고 형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고, 나도 그리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이들 위에 함께하시어 아픈 자, 병든 자, 악한 자들이 치료 받고 고침을 받을지이다. 그리고 섭리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찬란하게 역사하며 가게 하시옵소서. 사탄과 마귀들이 여러 각종 각색으로 모든 환난을 일으키나 잠잠하고 고요할지이다. 이들 시대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사탄도 마귀도 귀신들도 떠들고 모두 감행하오니 다 물러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자들 되도록 해 주시고, 항상 평화의 삶, 항상 모든 우애하는 삶, 공활을 베푸는 삶이 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모든 섭리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들에게 충만하고, 성령으로 계속 감동시키고 감화시켜 주시고 할 일을 하여서 부활되는 자들이 모두 될지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부활은 각각 하더라도 <근본의 뜻>은 모두 하나다.
2. ‘육’도 ‘영’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권에 있는 것이고, 생명권으로 나오는 자들은 살아난 것이다.
3. 육신의 행실이고, 영의 행실이다. <살아나는 법칙>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4.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 때 살아난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지켜 행하라.
5. 각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을 행하는 것이 <부활>이다. 부활되면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과도 통하고, 모든 만물과도 통해서 다스리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것이 통한다.
6. 부활되어야 감각이 있고, 느낌도 있고, 살아나야 선도 알고, 악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알게 된다.
7. <완전한 부활>은 차원이 높다. 사람들이 차원 높게 행하고 차원 낮게 행하는 것의 차이는 ‘부활의 차이’다. 어느 단계로 부활되었는지는 ‘생각’이 얼마나 부활이 되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8. 전문적인 부활을 해야 된다. 보통적인 부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수준 높은 부활, 좋은 부활, 이상적인 부활이 필요하다.
9.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논할 것이 엄청나게 많고, 애깃거리가 많다. 그러나 기성세계는 부활에 대해서 논할 것이 하나도 없다. 주가 오면 육신이 살아난다는 단순한 한 가지 뿐이다. 본인들이 하면서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니 모른다.
10. 부활로 따지면, ‘메시아를 믿고 행하는 것’이 다 <부활>이다. 육신이 부활되는 것이 따로 있고, 행하는 것은 행동의 세계로만 붙인다.
11. 모든 변화는 부활이다. 더 좋아지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것이다.

12. 세상 모든 삶의 세계를 따질 때도 짐승들이 사는 지역을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만들고, 개발하고,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도 부활로 따질 수 있는 것이다.
13. 성서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 마디로 말하면 <부활>이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신유의 은사로 보는 사람은 '신유의 은사'로만 본다. 그러나 부활의 세계를 터득한 사람은 '부활'로 본다.
14. 할 일을 하는 것이 부활이다. 더 좋게 되는 것이다. 살아난다는 것이고, 좋게 된다는 것이며,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15. 세상에 살면서 사랑도 좋고, 돈도 좋고, 집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것은 '살아나는 것'이다.
16.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좋다 해도 <부활하는 것>이 제일 크다. 살아야 사랑도 하고, 살아야 돈도 벌고, 살아야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살아야 집도 짓고, 희망을 이루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7. 메시아는 부활을 시키러 왔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다.
18. 공부하는 것도 부활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부활되는 것이다.
19. 살아나는 것이 그렇게 크다. 메시아는 생명을 살려주러 왔다. 부활시키러 왔다. '살리는 것'과 '부활'은 같은 단어다.
20. 예수님은 육이 죽고 영만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을 하나만 붙여야 된다. 구약, 신약 때는 육까지 붙일 수가 없다. 성약 때는 '육'도 살고, '영'도 살았기에 부활 하면 두 가지를 붙인다.
21. 계산을 잘못하면 다른 데 가 있다. 말을 할 때 잘 배우고 해야 된다. 문학자들에게 걸리면 틀린 말 한다고 금방 알아버린다.
22. 세상의 문학박사들이라도 주 앞에는 어린아이로 취급한다. 세상 문학에 대해서도 어린아이 같지만, 성경문학에 넣어보면 기어 다니는 아기와도 같다.
23. 옛날 임금들이 엄청나게 누린 것 같아도 전체를 볼 때는 현대의 고등학생들이 누리는 만큼의 혜택도 못 누렸다.
24. 지금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상천하지 최고의 낙을 누린다. 영원한 낙을 누리고 사는데, 옛날 임금들은 영에 대해서 무식하고 잘 믿지도 않고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다.
25. 옛날 왕들은 그저 자기 주관권에서만 살았다. 차도, 자전거도 타 본 일이 없고, 휴지 하나 쓴 것이 없고, 칫솔 하나 제대로 쓴 일이 없다. 문화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시대의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
26.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온 인류가 기다리는 자다. 왕들 역시 기다리는 자에 해당된다.
27. 예수님이 본래의 영체로 나타나지 않고 그 시대 그대로 보여주며 나타나면 형편도 없는 옷을 입고 다니신다. 그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28.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을 이 시대대로 생각하고 풀면 안 맞는다. 옛날은 호롱불 시대인데 지금의 전기불로 생각하고 풀면 안 맞는 것이다.
29. 성경을 무조건 좋게만 본다 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다. 더할 것을 곱하면 안 되는 것이다.
30. 그 시대 것은 그 시대로 풀어야 된다. 그 시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죽어서 육신이 못

살아난 것도 기록도 해 놓았다.

31.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배가 고파 쓰러진 옛날 사람을 알고 그 단계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배가 부르니 배가 부른 대로 판단하고 설명한다.

32. 선생은 혼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풀었다. ‘광야’라고 해서 사람이 안 사는 허허벌판이나 들판이 아니라, 풀 한포기 없고 너무 뜨거워 돌까지 닳고 닳아 불그스름하고 발 하나 디디고 살 곳이 없는 삭막하고 잔인 무도한 지역이다.

33.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광야를 거치면서 온 것이다.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의 들판과는 전혀 달랐다. 그러니 옛날식은 옛날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34.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도 그 시대에 똑같이 처해서 살았다. 왕의 간판, 마패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진수성찬 한 끼를 제대로 먹는 환경도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다.

35. 부활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고, 년도가 되지 않았는데 후년도의 것을 할 수가 없다.

36. 영화는 전부 확대시킨 세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제로 크게 웅장하게 상상도 못하게 만드신다.

37. 메시아의 공부는 다르다. 메시아가 공부할 때는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오고, 현실에서 겪으면서 배운다. 언어와 그 문화권을 공부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배워서 오는 격이다.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직접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와서 배우니 틀림없이 세밀하게 가르쳐 준다.

38. 다 만든 곳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쓰기만 하면 된다. 월명동이 그러하다. 그러나 아직 안 만든 곳은 지나갈 때마다 신경 쓰인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도 다 배우고 터득하고 부활이 되었으면 더 이상 부활에 대해 신경 쓸 것이 없다.

39. 부활의 최고의 할아버지는 최고 극적인 ‘휴거’다. 휴거되면 더 이상 없다.

40. 그동안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부활되어 온 역사이다. 점진적으로 차원을 높여서 종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신부로 부활되어온 것은 <휴거>를 하기 위해서다.

41. 부활되어야 할 것이 상상도 못하게 많고 많다.

42. 선생이 부활할 것이 무엇인가 보니, 전성기 때 뛰고 달리며 했던 것들을 다시 하는 것이었다. 시를 안 쓰면 죽은 것이고, 다시 쓰면 산 것이다. 다시 쓰니 하루에 열 편, 스무 편씩 써졌다.

43. 하나를 깨우쳐 주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44. 시간도 부활되어야 지킨다.

45. 부활되고 부활되어라. 부활되면 끝끝내 참고 견디고 하는 것이다. 부활되는데 쉬운 것이 아니다. 참고 견디며 목적을 향해 가야 된다.

46. 부활되려면 구체적으로 완전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해 나가야 부활이 제대로 된다.

47. 암 3기, 4기 진단 받은 사람이 살아나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살리려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몇 달씩 감행해야 백지장만큼 표가 난다. 5년씩 먹을 것도 참고, 고기도 참고, 결단하고 해야 간혹 한 명씩 낫는 정도다.

48. 사망권에 갈 사람이 생명권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영원히 살아나서 그 곳에서 삶을 받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놓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을 결단하고 그 세계로 완성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49. 월명동을 부활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 하나 심는데 30명이 바둥거리며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50. 나무를 사올 때도 돈만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년 전부터 기도해놓고 쫓아다니고 위험을 무릅쓰고 밤길도, 낮 길도 다니며 천리 길을 가서 사 온 것이다.

51. 심령의 부활, 정신적인 부활, 사상 부활, 생각 부활, 행동 부활을 해야 된다. 더 좋은 것, 더 엄청난 것, 더 어마어마한 것을 극적으로 해야 된다.

52. 월명동은 더 이상 없는 돌로 쌓아서 완성시켰다. 성지 땅에 조경이 완성되어 부활되어 버리듯이 부활되어야 한다.

53. 결혼을 안 하면 신부 방을 꾸밀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니, 하나님의 궁을 최고로 만들어놓아서 항상 하나님도 성령님도 쳐다보시고 계시고 거느리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줘서 깨닫고 이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하려면 끝없지만 일부 해 들어와서 “이제는 생활 부활을 꼭 해야 되겠다. 경제부활도 하고 기도부활도 하고 눈물겨운 눈물의 빵을 먹으며 앞날의 희망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와 같이 이때에 모든 부활될 것 꼭 해야 된다. 부활 주 기간이다. 꼭 부활되라.”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1년 동안 안 나온 사람, 2년 동안 안 나온 사람, 3년 동안 안 나온 사람들이 모두 와서 얘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잘 나오자. 이제 부활기이니까.” 해서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부활기간에 심령을 새롭게,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며, 우리 모든 캠퍼스도 부활기를 맞아서 역시 새로운 세계로 무장하고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오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 부활기에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3.16을 맞는 전에 더 좋은 부활로 더 좋은 휴거를 이루자. 엄청난 것을 얻는 데는, 행실의 부활이다. 휴거의 부활도 이론이 아니다.” 했습니다. “많이 뛰고 달리면서 부활시킨다면 더 좋은 휴거를 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랑 휴거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구하고 구합니다. 아픈 자, 연약한 자, 아직 부활되지 못한 모든 건전들, 아직도 모두 못하고 있는 일들 행하도록 눈을 들어 보게 해 주시고, 마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그 일을 감행해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목적인 길을 향해 달리는데 함께해 주시고,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사고가 없게 해 주시고, 항상 우리 섭리의 모든 자들이 사고나 겪는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과 사랑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권에 묻히지 않게 해 주시고, 생명권에 살아나게 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 날마다 살피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왕이라도 어떤 선지자라도 어떤 사사라도 행동해야 부활된다 했습니다. 메시아도 행동치 않으면 부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는 것만 부활된다 했으니 모두가 책임을 느끼고 행하게 해 주시고, 자기를 완성시키고 위대하게 만드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들이 전지전능한 대상이 되고 맞춰주며 갈 수 있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기를 맞아서 모두 더 좋은 부활을 꼭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고 행한 것만 부활되지, 행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있다.

2. 이념적 부활, 생각의 부활, 그리고 실존적 행실 변화의 부활이다.

3. 실제로 행해야 집이 지어지고, 환경이 개발이 되고, 예술성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듯이, 육이 행해야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나라도 건설이 되고 발전되며 실상이 이루어진다.

4. 행하지 않은 것은 무(無)로 사라진다. 고로 행하라!

5.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생각’에서는 부활이 된다. 그러나 그를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구원 시키고 가르치고 증거 해야 ‘실제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6. 하늘나라의 모든 세계들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변화가 바로 이루어진다.
7. 집을 지을 때 말로 세우면 말로만 되어 있지, 실제로는 안 된다. 집을 지을 때 기둥 하나 세우는 만큼 실제로 이루어지듯이, 모든 세계는 하나씩 행하는 것만 결과에 남아진다.
8. 하늘나라의 모든 건설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실천한 것을 따라서 건설된다. 실천하지 않은 것은 건설되지 않는다.
9. <실천하는 자>가 승리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다.
10.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골짜기를 보이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셨다. 에스겔은 “주께서 행하면 할 수 있나이다.” 했다.
11. 에스겔은 그 골짜기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호와께서 “살아나라.” 하심과 같이 외치면 반드시 살아난다. 실체를 전해주시 믿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새로운 세계로 부활되었다.
12.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를 부활시켰다>는 말은 환상에 불과한 말이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에 죽어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고, 민족에 모든 불타는 마음이 죽어있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13. 육적인 세계에서 외치니 영적인 세계의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서 움직였다.
14. <부활>이라는 것은 육적인 ‘삶의 부활’, ‘생활의 부활’이기에 복잡하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서 부활이 되어 간다.
15.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부활>이라면 한 번 일어나면 끝나겠지만, <생활의 부활>이기에 기도를 해야 기도의 센터가 살아나고, 전도를 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가르쳐야 알게 된다. 행하는 대로 <삶의 부활>이 된다.
16.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살아나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17. 살아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18. 기성에 있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못 살아난다. 육신이 살아나려고만 하는 비원리의 맞지 않는 말씀이기에 살아 나지 않는다.
19. 행해야 살아난다. 외쳐야 살아난다. 가르쳐야 알고 행하기 때문에 살아난다.
20. <행동 실천>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않고 행치 않으면 죽은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좋아했어도 실천치 않으면 자기를 속인 것밖에 안 된다.
21. 살아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22. 성경에 모든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해야 살아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신앙이 살아난다.
23. 예수님은 죽은 후에 육신이 살아오지는 못 하고, 영혼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안타깝게 끝이 났으나 이 시대는 시대 십자가를 지고 육신도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서 외치게 되었다.

24. 이제는 우리가 매일 부활해야 된다. 부활은 <변화>시키는 것이다. 좋게 만드는 것이요, 빛나게 만드는 것이요, 깨닫는 것이다. 자꾸 할수록 인생을 더 멋있게 맛있게 뜻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25.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나 죽은 자가 한 번 살아나면 평생 살게 되듯이 우리 신앙도 살리고 살리면 영원히 산다.
26. 가다가 죽으면 헛일이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는 것'이 죽은 것이요,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다. 육신이 죽은 것 같이 이미 죽은 것이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되어 사망으로 간다.
27.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새 시대로 살아나지 않았다. 신약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영원히 아들로 살아날 수가 없다.
28. 신약의 역사에서 또 새로운 역사, 재림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근본으로 한 휴거의 역사로 살아나려면 <시대 하나님 보낸 자,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29. 구시대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못 들으니 구시대에서 죽어있는 것이다. 듣지도 않고, 행치도 않으니 살아날 수가 없다. 영영히 시대 말씀을 믿고 주를 시인하고 사랑하여 신부로 변화되기 전에는 살아날 수 없다.
30. 누구든지 시대의 온전함을 갖고서 100% 해야 100% 살아난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부분적으로 밖에 안 살아난다. 두 다리 중 한 쪽 다리만 나으면 불구의 몸이다. 불구적 부활을 하면 안 된다.
31. 죄를 지으면 죄에 매이게 된다. 죄에 매이지 않는 세계로 부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역사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32. 부활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행하는 것밖에 없다. 자기 정신과 생각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다. 확실히 서야 부활된 사람이다.
33.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 가지 작전이 있다. 못 믿게 하는 전술, 행치 못하게 하는 전술,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하는 전술, 하기 싫게 하는 전술, 신앙생활을 하기 싫게 하는 전술과 다른 세계로 가게 하는 전술 등 수천, 수만 가지다.
34. 그냥 부활되는 것이 아니다. 싸워서 이겨야 부활된다. 지면 사망으로 간다.
35. 영의 세계는 지금도 끝없는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던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니 안타까운 일이다.
36. 믿어도 시원찮게 믿고, 긴가민가하며 믿고, 믿다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중심대로 하다 보니 부활이 제대로 안 되고 구원을 못 받았다.
37. 부활은 구원받은 것이며, 살았다는 것이다.
38. 하나하나 따져볼 때에 신앙이 정말로 진실하게 일편단심으로 행해야 된다. 그가 온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39. 우리는 2018년 2월 18일에 사망 길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역사로 나왔다. 육신의 부활, 삶의 부활, 신앙의 부활, 영혼의 부활이다.
40. 그리스도가 나와서 말씀을 하니 듣고 행하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을 하였다. 지금도 이 역사

는 진행되고 있다.

41. 모두가 부활의 역사를 깨닫고 행해야 된다. 안 하면 무조건 안 된다. 살아날 수가 없다.

42. 잠을 자다가 눈이 말뚱말뚱해도 산 것이 아니다. 무조건 일어나서 할 일을 행해야 살아난 것이고, 잠이라는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43.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된다. 모든 사람이 다시 꼭 부활돼서 살아나야 된다.

44. 영적인 신앙이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고, 진리를 믿고 행해서 살아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나고,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나고 부활되어야 한다.

45. 주를 사랑치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죽은 길을 가는 자다.

46. 영계에서 사탄들이 섭리사를 나간 자들을 100명씩, 200명씩 끌고 가는 것을 봤다. 그들이 아무리 “주여! 선생님!” 하고 소리를 질러도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는 것은 메시아라도 불가능하다.

47. 사탄이 이미 반은 죽여 놓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놓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가져와도 못 산다. 자기 애인을 가져다 끊어놓은 것이다.

48. 신앙 변동 시키지 말고 정말로 잘해야 된다. 영계를 가보면 소리를 질러댄다. 바짝 가보면 섭리인들이다. 그런데 본인이 섭리를 떠나가고 불신하고 주를 싫어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본인이 안 믿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끌고 간다.

49. 꼭 살아나야 된다. 온전한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50. 주가 손대고 가까이하고 사랑하여 열심히 하던 자라도 나간 사람은 나갔다. 그들은 이미 영원히 못 살아난다. 끝났기 때문에 찾지를 않는다.

51. 누구든지 죽으면 끝난 것이다. 어린 자라도, 스타들이라도 육신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못 살아난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불태우고 화장해서 가루로 만들어 뿌렸는데 살아나겠느냐. 그와 같이 영도 주관권을 영영 벗어나면 못 살아나는 것이다.

52. 하나님을 불신하고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자는 죽어서 끝나버렸다. 다 잘했어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계란을 깨뜨리게 된다.

53. 선생이 어렸을 때 손님이 왔으니 진산에서 계란을 사오라 하여 2개를 사오다가 앞섶골까지도 잘 오고, 성령폭포까지도 잘 왔는데 그 옆에서 깨뜨렸다. 마지막에 계란을 깨뜨리니 그것으로 끝났다.

54.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끝나고, 다시 복직이 없다. 이 시대 모든 것이 마찬가지다.

55. 정말로 잘해야 된다.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못 하면 헛일이다. 섭리사 나간 자들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도 목숨 걸어놓고 “주여, 주여” 하며, “다 나가도 우리는 안 나간다.”고 소리쳤다.

56. 이미 사탄에 끌려가는 팔자로 돌아가면 잡아도 안 된다. 그때는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된다. 본인의 책임분담 5%를 못 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57.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귀가 하는 짓이 얼마나 알밋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58. 부활을 꼭 해야 된다. 육신이 죽으면 못 살아나듯이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못 살아나고, 사망권의 영혼이 되고 만다.

59. 끝까지 남아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끝까지 안 하면 죽은 자가 되어 사망으로 간다.

60. 하나님은 <끝까지 하는 자>를 최고로 보신다.

61. 결혼했어도 서로 싸워서 헤어지면 남이 되고 끝난다. 안 헤어지려면 계속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변하게 된다.

62. 우리는 휴거까지 이루었다. 휴거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계속 기도를 하라. 영원토록 끝까지 자기 영혼을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라.

63. 형제들에게 섭섭한 것으로, 상처받은 것으로 죽지 말아라. 주가 있어서 주를 보고 왔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라.

64.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하찮은 것으로 다시 죽지 말라. 서운함 타고 섭섭함 타고, 하찮은 이성애 걸려서 넘어지지 말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죽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산 자의 삶을 끝까지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두 그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것을 받고, 영원한 황금 천국으로 가는 세계를 받아놓고서도 하찮은 시험, 하찮은 어려움, 하찮은 핍박, 이것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죽어버리는 자들 있으니 이것은 자기가 독약을 먹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며 끝까지 죽지 않고 신앙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되고 형통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우리의 부활은 죽은 시체의 부활이 아니다. 단번에 순간에 잠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죽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다.

2. 심령의 부활, 정신적 부활, 행동적 부활, 이미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이다. 육신이 더 좋게 더 이상적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나는 부활이다.

3. 행동하는 만큼 산 자가 되리라. 깨끗이 하는 만큼 깨끗한 자의 부활이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한 만큼 더 사랑의 부활이 되리라.

4. 죽은 자가 살아날 때는 힘이 없다. 생명력은 힘이다. 힘이 오는 대로 살아난다.

5. 2018년도 2월 18일부터 부활의 날을 맞기 시작했다. 선생이 나오고부터 부활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6. 그 육신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너무 힘이 없었다. 시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힘나게 날아다녔는데 그 힘이 없었다. 그래서 나오고부터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 생명력의 힘을 달라고 늘 기도했다.

7. 생명의 말씀, 부활되는 말씀을 계속 주며, 말씀대로 계속 했다. 그러나 뛰어다니기가 힘들고, 날아다니기가 힘들고, 모든 의욕심이 사라지니,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죽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8. 부활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하루면 족할 테지만, 생활의 부활, 영적인 부활이기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서 그릇이 채워져 넘치듯이 살아나는데 6개월이 걸렸다.

9. 6개월은 하나의 ‘사망권의 기간’, ‘생명권에 오는 기간’이다. 섭리 모든 자들이 부활된 자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을 살아서 뿜 것이다. <산 자들의 역사>가 일어났다.

10. <산 자들의 할 일>이 무엇이나. 이제 하나님을 불같이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산 자들에게 무한히 주시니 받고 누리며 멋있게 역사를 펴는 것이다.

11. 하나님이 불같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며, 주께서도 힘 있게 행하시는 그 모습은 역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산 자의 모습이다.

12. 지휘를 해도 신적 지휘를 그대로 하고, 노래를 해도 신적 노래를 그대로 한다.

13. 부활된 자들은 자꾸 해야 된다. 성령의 계획으로 시대 하와와 의논하여 예술의 첩경을 평탄케 하여 주의 길을 예비해 놓으니 주께서 행하심을 보게 되었다.

14. 부활된 자들은 멋있게 시대를 울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는 부활되기 전보다도 더 큰 영광이다.

15. 시대를 위해서 대속해서 역사를 펴주고,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과거보다 더 엄청난 위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16. 전반기 때는 부활이 됐어도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신적 부활은 안 되었다. 공생애 역사의 부활이기 때문이다.

17. <첫 번째 부활>은 섭리사를 시작할 때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와서 역사를 펴는 부활이 있었고, <두 번째 부활>은 구원역사를 해 나가다가 시대의 불신과 배신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속량해 주어 주와 따르는 자들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난 것이다.

18. 10년을 죽어있었으니 살아나기가 너무 어려웠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었는데도 못 살아나고 안타깝게 영혼만 왔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육신이 여봐라 하고 척척 살아나왔다. 그것을 보고 힘이 나고, 그때부터 신바람이 난 것이다.

19. 예수님은 ‘사형의 십자가’를 지셨고, 시대의 주는 ‘고난의 십자가’를 졌다. 시대에 따라 다른 것이다.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애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르다.

20. 시대가 그만큼 조건을 세워서 발전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펼쳐졌기 때문에 성약역사는 다르다.

21. 과거는 죽어있었다. 복음도 산 자의 복음을 못 펴고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펴왔다. 이제는 부활기를 따라서 모두 다 산 자들이 복음을 펴는 것이다.

22. 복음의 전도대회도 멋있게 웅장하게 해야 된다. 예술을 통한 복음의 역사도 같이 한다.

23. 이제 우리는 산 자들이 됐으니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실제 대상이 된 것이다. 계속 사랑과 진리로 살아나가야 된다.

24. 두 번째는 영원히 가는 것이다. 지상세계에서는 천 년 동안 간다. 살았으니 이제 계속 전해서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려야 된다. 얼마든지 사망권에 있는 자들을 불러다 말씀을 주어서 살리면 된다.

25. 세 번째는 살았으니 무한히 받는다. 행하는 대로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신다. 살아서 계속 주는 것이다. 이것이 크나큰 부활된 자의 기쁨이요, 이상의 세계다.

26. 부활되었어도 무엇에 유익이 있는지 알아야 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27. 육신이 있으니 몸조심 하면서 잘 살면 된다. 그러면 육신 일생동안 계속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죽어도 후손들이 천년 동안 부활역사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28.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즉 자손들도 계속 잘 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신앙이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를 따라 믿고 사니 그 자손들도 3대까지 잘 되었다.
29. 시대마다 해야 될 사명을 해야 된다. 우리는 부활되었다. 살아났다. 살아나기 위해서 10년 동안 몸부림치고 싸우고 낙심치 않고 이겨온 것이다.
30. 이제 우리는 부활되었으니 휴거가 되었다. 부활은 휴거를 향해서 올라오는 것이다. 6천년 동안의 역사는 마지막 휴거를 위해서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 휴거는 <사랑>으로 된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접목시키고, 오신 주와 접목시키고, 성령과 일체 되어 접목시켜야 완전히 휴거가 된다.
32. 인류의 모든 종교의 최대 소원인 <메시아를 맞고 휴거되는 것>을 우리는 이루었다. 최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가고 있는 것이다.
33. 자기가 누리고 있어도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면 기쁨이 덜하다. 알고 춤을 춰야 된다.
34.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휴거, 더 좋은 사랑,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뛰고, 더 열심히 해라.
35. 말씀을 들어야 개념적인 부활이 되고, 이념적인 부활이 된다. 생각적인 부활이 되고 그로 인해서 행실적 부활이 된다.
36. 시대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가면 부활되는 것이다. 휴거된 것이다. 그러나 휴거의 차원은 있다.
37. 300선, 400선, 500선, 600선, 700선, 800선, 900선, 1000선은 본인이 안다. 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것은 1000선이다. 마음도 뜻도 목숨을 다해서 살면 그것이 1000선의 부활을 하는 것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으로 부활과 이상의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오늘 밤에 많은 생명들을 데려다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부활되게 하심을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 밤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힘나게 멋있게 은혜 있게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되도록 더욱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와 더불어 행하는 이들에게 능력과 권능이 더할 것이며, 그 행하는 자마다 능력이 올 것이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그리함을 받도록 우리는 더욱 열나게 힘차게 하겠습니다. 산 자들의 그 기쁨, 누가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나서 우리는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 더 충만합니다. 주가 살아났고, 주를 맞는 신부들이 살아났고 이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가 천년 동안 연속될 것이며, 기성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주가 왔구나.’ 하는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며 성령께서 이들을 사로잡아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감동을 계속 시켜 주시옵소서. 민족도 그러하게 해 주시고 온 세계도 그리하게 해 주시고, 이 세계에 복음이 전한 나라마다 계속 번져가게 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폭발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믿고 따른 자들은 <표적>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주를 믿고 따르면 ‘삶 자체’가 늘 표적의 역사니라.
2.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준>을 세워 주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온

후에, 메시아를 맞게 되었다.

3.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실체를 믿는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실체 역사를 펴기 시작했다.

4. 구약도 구약 나름대로 역사를 폈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 신약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신약의 열매를 맺었다.

5.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아담과 하와가 못 세운 믿음의 조건을 세워 주고,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터전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신약의 첩경을 평탄케 할 수 있었다.

6.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서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어주었고, 실제 주를 믿고 따른 조건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역사의 조건을 세워 또 시대 주를 맞을 수 있게 되었다.

7. <믿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을 연결하고 생명과 일체 되는 역사'다.

8. 실체를 보고 믿는 시대도 있지만,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도 있고, 그런 사건도 있다. 또 어떤 것은 실체가 현실에 부딪혀서 지나간 것도 있다.

9. 구약 역사는 믿음의 소망으로만 유익했지, 실체는 맞지 못했다. 신약의 역사는 실체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으나, 또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믿음으로만 은혜를 받고 희망으로만 오고 실체를 얻지 못한 시대다.

10. 이 시대는 이제 <실체>를 보고, 믿고, 행하고, <실체 역사>를 펴면서 변화되어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되고, <실체> 속에 살게 되었다.

11. 믿고 따르면 늘 <표적의 역사>다.

12. 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생활이 안 되면 그 생활은 따로 본다.

13. <마음을 어디에 두고 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말로는 신앙에 두고 한다고 했어도 실제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

14.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활에만 투자하고, 먹고 사는 데만 투자하면 그것은 자기 생활로써 소모되는 것이다.

15. 자기 생활을 하더라도 80% 이상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움직여서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기울지 않으니 위험하다.

16. 80% 선에서 자꾸 내려가다가 70%, 60%, 그러다 50% 선에서는 육적으로 거의 넘어간다. 주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자기 생활에 처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생활에서 소모되고 끝난다.

17. 진실로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살아서 현실의 물질이나 삶에도 큰 도움이 되고 신앙에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삶이 지상에서 소모품으로 끝난다.

18. 하나님은 절대신이라 <절대적인 것>만을 원하신다.

19. 육적인 삶은 온전치 못한 취급을 받으며 육신이 사는 동안의 기쁨에 불과하고, 육신 세계에서만 혜택을 볼 뿐이지 영의 세계에는 지대한 영향을 못 미친다.

20. <육적>으로도 진실로, <영적>으로도 진실로, <마음>으로도 진실로 해 나가야 된다.

2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것만을 용납하시니 절대적인 것만 하나님께 붙게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천층만층 자기 차원대로 하나님께 붙게 된다.
22. 100% 절대적인 세계만이 영원성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 <절대적>으로 조건을 세운 것이 <영원성>을 창조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성의 밑에 있는 차원의 세계에서 존재한다.
23.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은 ‘두 가지’를 세워야 된다. 하나는 <마음의 조건>이요, 또 하나는 <실체 조건>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세운 터전 위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표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24. 표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과 <인간>, 두 세계가 일체 되어 번쩍 번갯불이 치듯이 부딪혀 일어난다.
25. 실제로 말씀을 배우고 주를 알고 실제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과 일체되고, 주와 일체되어 때가 되면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26. <두 세계의 조건>을 세운 자는 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삶 자체가 사망 길을 벗어나서 생명 길의 삶을 사니, 그 자체로 표적이다.
27. 주를 따르라! 삶 자체가 곤고하고 육적인 세계에서 희망이 없고 여러 가지 인생 문제가 있었던 베드로는 주를 따를 때부터 그 삶을 벗어나게 되었고, 표가 나는 표적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28.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보편성을 벗어나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안 될 것도 되는 것이다.
29.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의 <표적>이다. 자기의 위치대로 표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한계대로 표적이 나타난다.
30. 삶 자체가 거짓 없이 하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지금은 남의 힘으로 살 때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할 때다.
31. 어렸을 때는 늘 엄마가 어린아이를 잡아주고 일으켜 주지만, 젖을 떼면 자기가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학교도 다니며 스스로 하듯이 시대의 신앙도 그리 해야 되는 때다.
32. 늘 잡아주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커서 하나님 앞에 결혼식을 한 단계까지 갔으니, 성장해서 어른이 된 세계이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그러할지라도 이제 온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장기에 있기에 잡아줘야 될 부분도 있다.
33. 자기가 행하여서 표적을 보고, 자기 삶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표적을 자꾸 봐야 더 믿어지고 더 따르게 되고 더 행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의 표적>이다.
34. 청중 속에 몰려서 표적을 볼 것이 아니다. 자기 개인이 구체적으로 행할 것이 많다. 자기가 자꾸 불가능한 것을 일으키며 얻고 가야 된다.
35.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실과 상황이 확실하고 완벽할 때 더 믿어진다. 그러나 자기가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36. 월명동에서 일을 할 때 조금 했을 때는 이상세계가 안 믿어졌다. 그러나 많이 하게 되니까 믿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기의 행위와 행실을 따라 더 믿어지고 더 좇게 된다.
37. 주를 좇는 것도 자기가 믿고 행해야 자꾸 더 믿어지고 더 행해져서 표적이 일어난다. 어떤 존재세계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38.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커서 결실했으나 어떤 사람은 잘 크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여 마치 사과열매 맺을 자가 방울토마토 같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39. 예정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결과는 좌우된다.
40. 흔히 사람들은 자기만족에 산다. 조금 해 놓고 되는 대로 만족하며, ‘이것이 내 팔자고, 운명이다.’ 한다. 그러나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다.
41. 조금 늦더라도, 힘들더라도 크게 만들었으면 큰 그릇이 되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자기 삶과 자기 팔자를 굳히고 생각대로 한다.
42. ‘주’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세계에서 살았다. 성장하는 가운데 더 하면서, 더 가다보니 점점 역사의 주인임을 알게 되었다.
43.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큰 그릇도 되고, 작은 그릇도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안 하고 작게 해 놓고 ‘나는 그릇이 여기뿐이다. 이것이 한계다.’ 한다.
44. 그릇을 만드는 주인은 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45. 사람들은 100% 성공하지 못 한다. 사업을 100명이 해도 다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못 하는 사람이 작은 그릇이다.
46. 얼마든지 큰 그릇이 되어라. 가만히 있으면 원하지 않아도 작은 그릇이 되어 있다. 못 따라가면 작은 그릇이 된다.
47. 주를 쳐다보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 주 같이 만들어라. 자꾸 크게 해야 된다.
48. 시험문제를 풀게 각자 놔둔다. 본인이 힘쓰고 애써서 푸는 것이다.
49. 하나님이 주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50. 자기가 해야만 더 확실히 알 수 있고, 표적도 더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자로서 기울지 않으신다. 해가 오기를 원하지 말고, 자기가 해 곁에 가라.
51. 지금은 다 성장돼서 신부들이 알아서 하는 신부시대다. 누가 끌고 다니지 않는다.
52. 자기 때에 크지 못하면 그 영이 아직도 어리다. <영>이 하나의 모터요, 엔진 역할을 한다. 영이 힘을 확확 못 밀어주니 육도 확확 일어나 빛을 못 발한다. 차만 크고 엔진이 작으면 달릴 수 없다.
53. 석탄 열차가 점점 발달돼서 급행열차가 되고, 세련된 시대의 열차로 바꾸고, 이제는 완전히 날아다니는 차가 되어 시속 300km씩 달려간다.
54. 같은 시대여도 급행열차를 전혀 못 보는 자들은 석탄열차를 타고 다니며 그 나름대로 좋아한다. 이 시대도 똑같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가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면 자기들이 타고 가는 열차로 만족하며 간다.
55. 하나님은 시대를 두고서 여러 가지로 행하신다.
56. ‘안 되면 방법을 달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도 그리 하신다는 것이다.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렇게도 하

고, 저렇게도 하며 시대에 따라서 하신다.

57.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보고 생명들을 대하라. 물은 물로, 불은 불로, 나무는 나무로 통하듯이 그들의 머리에 꼭 차 있는 것을 보고 그에 합당하게 채워 주고 이끌어 줘야 된다.

58. 성령은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다. <생각>이 성령과의 대화다.

59. 시대를 전초하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천사'라는 이름을 붙여 행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신앙의 아기니라." 하셨다. 보이는 그대로 계시다. '신부'라 할 수 없는 전초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자연의 실체 계시를 보면 어느 급인지 바로 안다.

60. 전초자들이 유치원생 정도이니 기성은 어떠하겠느냐. 기성의 세계를 보면 아기들이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아는 어린아이 세계다.

61. 자신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증거한다. 그러나 보아도 잘 모른다. <주>는 '주인'으로서 모든 종교를 확 찢어서 말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고 따르면 표적이 일어나리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세상 섭리 나라 교회들에게 오늘도 평안을 빕니다. 이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데려오고, 가장 이상 된 세계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이 시대 뜻을 펴는 데에 많은 청중만중이 와서 역사를 펴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았으니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자기중심, 자기 삶을 중심해서는 영의 세계 성장이 안 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세계에서 산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신부가 돼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 지금은 그런 때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그 존재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만큼 역사하시고 표적을 일으키니, 믿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행함',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체가 돼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약한 자, 부족한 자가 모두 깨닫고 알고 행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결길 가는 자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양떼와 소떼를 부지런히 다스리고 주관하고 살피라 했습니다. 사망에 속한 영들이 잡아간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이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표적의 역사다. 주를 만난 것이 표적이니 주만 따라가라. 그를 믿어야 따라가지지, 안 믿으면 안 따라가진다.

2. 주만 알고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실천하면서 가야 얻어진다.

3. 사람이 <행하는 자체>가 기적이다. 행한다면 산 자로 볼 수 있고, 행치 않은 자는 기능이 죽은 자다.

4. 행하고서 쉬는 것은 괜찮다. 축구를 전반전에서 뛰고, 후반전을 뛰기 전에 쉬듯이 휴식시간에 쉬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계속 쉬고 기능을 안 하면 죽은 자로 본다.

5. 사람이 밤에 잘 때는 죽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때는 정상적으로 자는 것이다. 그러나 낮에도 잠을 자고 일어나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 삶이 죽은 자, 기능이 죽은 자, 생활이 죽은 자로 표현할 수 있다.

6. 쉬는 시간, 자는 시간에 행치 않는 것은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뛰는 기간, 움직이는 기간에 안 뛰고 안 움직이는 것은 <죽은 것>으로 본다.

7. 어느 때 살아있고, 어느 때 죽어있는지 신앙의 세계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라.

8. 잘 때는 자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잘 때 자야 산 것이고, 쉼 때 쉬어야 살아있는 것이다. 다음을 뛰기 위해서 산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9.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면 밤낮주야로 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 선생은 24시간 된다. 밤에 잘 때는 혼이 가서 혼의 세계를 보고 영계에서 뛰며, 낮에 쉰 때는 육계에서 된다.

11. 육계에서 뛰는 것과 혼계에서 뛰는 것을 더하면 인생 200년을 사는 격이다. 거기에 더해서 2배 빨리 뛰면 400년을 사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의 차원으로 된다면 1000년 이상 산 것이 된다.

12. 사람이 오래 살면 많이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하면 오래 산 것이 된다.

13. 어떤 사람이 걸어 다녀서 하루 종일 세 군데밖에 관광을 못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차타고 다니면서 열다섯 군데를 관광했다면 5배를 더 많이 산 격이 된다.

14.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주가 와서 늘 많이 가르쳐 주니 자꾸 하게 되어 구시대보다 3배 혹은 5배, 10배, 100배 더 알고 더 많이 해 놓고 가게 된다.

15. <많이 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것'을 한 것이다. 구시대 것은 새로운 시대 것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시대 것에는 새로운 시대의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16. 항상 새로운 세계는 그만큼 엄청난 역사를 창조해 놓고 거기서 살다간다. 땅에서 많이 해 놓은 것도 크지만, 미래는 엄청난 영원한 세계의 일들이라 육신 세계에서 <순간> 행해서 <영원>을 낳는다. 행할 것을 행해놓으면 순간의 행함이 그렇게도 크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순간 잘못해서 못 행하기도 한다.

17.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행하면 표적의 역사요, 표가 나는 일들이다. 안 행하면 표가 나는 일이 하나도 없다.

18. 실천이다! 역사는 실천하면 이루어진다. 행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19. 하나님을 안 믿어도 누구나 행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표는 육신이 살아있을 때 육적인 세계에서만 사용되는 축복이다.

20. 산 자는 잠을 자도 제때 잠을 자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잠>이 된다.

21. 새 시대를 뛰게 되면 구시대를 안 뛰어도 구시대의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22. <영적인 세계>를 위해 뛰면 육적인 세계의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일생동안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23. 하나님을 안 믿고 육적으로 뛰는 사람도 행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를 위해서 그리 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으로 뉘 자는 선의 대가를 받고, 악으로 뉘 사람은 악의 대가를 받는다.

24. 행하되, 그 대가를 받으니 알아서 행하라.

25. 육적으로 뛰면 육적인 세계의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뛰면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받는다.

26. 영적으로 뉘 자는, 육적인 세계도 네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도 잘 된다 함같이 잘 된다.

27.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고 행하며 뛰는 자는 육적으로만 뉘 것이 되어서 육적 세계에서만 해당되고 끝난다.

28.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해에 전도하라고 했으면 전도에 주력해야 된다. 전도할 사람이 너무 많다.

29. 금년도에 전도를 안 한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자다. 하나님과 주와 함께 하면 전도가 안 될 리가 없다. 안 하니 안 되는 것이다.

30. 기도를 깊이 하라. 깊이 기도하면 기도에서 시동이 걸린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31.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얹히고설킨 것이 다 풀리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라. 자연성전에서 일할 때 사고 안 나게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를 계속 깊이 해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육적으로 행하면 육신의 표적, 영적으로 행하면 육신도 표적 영도 표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늘 축복해 주시는데, 이 성전을 위해서 모두 뛰고 달리게 해 주셨습니다. 모두 제대로 해야 잘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영킨 모든 것은 다 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일 하는데 차질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가 기도하였은즉 다 풀어지고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거침없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 영원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 되고 잘 되지만, 육적으로도 행하고 영적으로도 행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써 이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고, 얹히고설킨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온전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탄의 행위와 마귀의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늘 막고, 꺾고, 역을케 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세계를 하나님 다 없애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마귀와 사탄,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행하심을 막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가는 자들이 이런 것을 쳐단하고, 이런 것들을 이기고, 또 사탄을 무찌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모으고 헤치는 자들은 승리하여서 사탄도 멸하고 흑암도 멸할 것이며, 악한 자도 멸할 것이며 불의도 멸할 것이며, 이기고 이겨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감하게 시대 일을 다 몽창 끌어안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남겨놓고 가면 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할 자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시대의 주인 돼서, 시대의 신부들이라면 신부들의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 사람들을 구원도 시키고, 이들을 가르치고, 많은 생명을 따라오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 자기 존재를 위해서 뛰고 달리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모두 손을 대며 기도하오니 모두 잘 되고 형통되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탄과 마귀들이 자꾸 꺾어가고 이끌어가니, 자기만 뛰지 말고 모든 약한 자를 붙잡아 주고 이끌어 주고 함께 행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행할 것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난다 했으니, 늘 그리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서 행할 수 있습니다. 저 기성은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 그들의 2세들이 자꾸 이 세계로 쫓아오게 해 주시고, 뜻 있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자꾸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섭리사의 모든 일하는 자들 축복해 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조은이, 그의 계획을 통해서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고 내게 주셔서 모든 계획을 실천함이 충만하도록 하시니 지혜와 은혜로 더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성령께서 늘 붙잡아주시고, 영도 육도 잘되고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모두 이들이 잘되고 형통될지어다. 어느 한 곳에 가니까 70일 동안 정해놓고 나와 조은이를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얻어먹지 말고, 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 주고 행하며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가 오면 주께 매달리기만 하지 말고, 역시 주를 살피면서 먹여 가면서, 입혀 가면서, 잡아당겨주면서, 이끌어주면서 주의 모든 구원을 받고 해야지, 사람이니 얼마나 약하겠나. 모든 것을 10배 20배 50배 100배 1000배 일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이와 같이 할 줄을 모르고 항상 예수님 때부터 끄집어 당기기만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깨닫고 컸으니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사랑과 은혜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극단적으로 뛰고 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15세 때부터 계속 뛰었습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면서 더 새것이 났습니다. 칼은 쓸수록 빛이 나는 것처럼, 기계는 쓸수록 빛이 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뛰고 달리고 힘이 합당함을 믿사오니 모두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하나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으로 항상 지켜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불 같이 쓰고, 아껴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고 했습니다. 모두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섭리의 모든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될 시대가 왔으니, 마지막 시대를 잘 행하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다해서 행하게 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섭리의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전체 교회들과 개인까지 일어나 기도하고 간구해서 신령하게 자기를 만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운동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정신을 차

리고 해야 더 이상적인 것이 일어나지, 하기는 하되 그럭저럭 보통해서는 그런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지 땅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보통 해서는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들을 옮기며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며 행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성지 땅의 성전이 어떤 거라도 제재 받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로 다스려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전을 온 민족이 사모하고 두려워하며 감격하며 좋아하며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놓은 이 성전을 중 심해서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늘 살피고, 전이 잘됨같이 모든 민족도 세계도 거기 속한 자도 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늘 지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궁전을 지키고, 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모두 하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 열심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진실한 기도로 늘 행하게 해 주시옵 소서. 그냥 행하면 형식의 행실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만 행하면 역시 실속 없는 죽은 행실들이라 했습니다. 마음도 행하고 육도 행하여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 신앙의 병든 자, 그리고 육신의 병든 자, 그리고 모든 행실의 병든 자, 행동의 모든 연약한 자들, 모두 포함시켜 기도하오니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고 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행하심을 항상 함께 하사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깨닫고 은혜롭게 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 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을 늘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만 하지 말고, 역시 4시에 도착해서 1시간씩 이상 기도하고, 말 씀을 듣고 행하게 모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이 21일 동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는 기간 날짜만 보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21일씩 보내는 일이 전혀 없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역시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새벽도 하고,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삶의 기도니 늘 부르고 간구해서 모두 얻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자들,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기도하라 했습니다. 모두 뛰고 달리는 자들, 머리가 되어서 뛰는 자들, 뛰지 않으면 지체들이 가만히 있으니 저희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몰려오 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를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시대를 잡고, 하나님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못 잡고 그냥 가면 너무 억울하니, 시대의 말씀으로 주와 같이 시대를 잡고 다스려나가게 해 주시옵소 서. 많은 생명들이 손을 대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들을 모두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두 일을 해 보면 엄청난 일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일들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일거리가 너무 많아 태산 같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한 쪽에서는 일거리가 없어 서 놓고 있으니, 일 하는 자와 일체 되어서 일을 해야 일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뛰고 달리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육신 을 쓰고 행하니, 부지런히 우리 육신들이 뛰고 달리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권 능과 사랑으로 지켜 주시어서 마귀와 사탄과 귀신들이 섭리의 모든 것을 다 휘어잡지 않게 섭리사람들이 다스려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불신하고 배신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의 그 금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 없 어지게 해 주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해 주시고 고꾸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없 으면 역시 흑암의 세계는 자꾸 침범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세계와 흑암의 세계가 일어나 육신을 쓰고 행하니, 악한 자 의 행함들임을 믿습니다. 이들을 다 하나님 거꾸러뜨려 주시고, 내 말이 생명이니 말씀의 검으로 휘두릅니다. 모두 사 로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는 이만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섭리 전체가 뛰고 달려, '네가 잘되고 형통된다. 앉아서 복 받기를 원하나. 복 받으려면 복 받을 만큼 뛰고 달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조건 대 가라 했습니다. 그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해 주시고, 뛰는 만 큼 표적이 일어나고 행하는 만큼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 무엇을 행할지 모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우 쳐 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이미 말씀도 해 주었으니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모든 육체적으로 발달된 지구상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모든 신상을 섬기는 저 불교인들, 샤머니즘들, 그리고 모든 이단의 종교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모든 질그릇 같은 것들을 깨부숴 없애오니 다 깨어지고 허무를 느끼고 하나 님께 돌아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사로 다 연결돼서 시대의 말씀을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그들 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는 자는 수천 대까지 멸한다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말씀을 모 르고 삽니다. 오직 우상만 섬기고, 오직 그들을 모두 신성시하고 사니 그들의 주인들은 모두 이미 지옥 가 있어도 있는 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사망 길로 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서 구원시키게 해 주시고 이 끌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모르면 지옥의 문을 열면서도 흑시나 희망의 문인가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 이 지옥 가까이 가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잡아서 온전케 만들어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섭리 사람 들, 악한 자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리하게 축복

해 주시옵소서. 모두 섭리의 전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자기 먼저 만들고, 온전케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영웅심의 사람이 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자들이 돼서 개성을 살리며 재능대로 열심히 뛰고 달릴 때 이 섭리가 강자들의 세계가 더욱 되오니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옵소서.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 표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선을 행하라. 모두 우리에게 준 말씀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 타고 성령과 같이 일하러 가는 곳에 많은 생명들이 기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없는 곳, 주관권에 있는 모든 세계에 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콘서트에 왔던 모든 생명들을 부르시고, 내가 이들의 영혼을 부르노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사 그 영혼들을 계속 불러 주시고 육신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두 그리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사 모두 우리 그물망에 얽혀들어 나에게 연결돼서 다 구원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주를 믿고 좇아 행하면, 그 자체로 <표적의 역사>다.
2. 주를 믿기도 어렵고, 행하며 따르기도 어렵다. 그러나 깨닫고 하면 쉽고, 못 깨달으면 힘든 것이다. 고로 주는 깨닫게 하기 위해 가르친다.
3.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행할 때 믿어진다.
4. 앉아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기 유익이 없으니 안 믿어진다. 믿고 행해야 유익이 있으니 따르게 되고, 행하게 된다. 믿고 행하면 얻어지니 <표적>이다.
5. <표가 나는 일>이 표적이다. 표가 안 나면 표적이 아니다. 일반적인 표가 아니라 ‘보편성을 떠난 표, 획기적인 표’가 나는 것이 표적이다.
6. 믿고 따르면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나 행하는 것에 따라 각기 다른 표적이다.
7. 아픈 자가 믿고 따르면 건강하게 되고, 시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생명에 관한 것이 해결된다. 생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것들도 해결되니 표적이다.
8. 무엇을 하든지 표적을 이루면 ‘표’가 난다. 그러나 육적인 것은 육적인 표가 나고, 신앙적인 것은 신앙적인 표가 난다.
9. 신앙적인 세계의 목적은 ‘영원성’을 포함시켜두었다.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이상세계에 속해 사니 엄청난 표가 나는 것이다.
10. 사람이 살면서 누구든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다. 사람들은 안 죽고 살려고 각종 각색의 약을 다 먹는다. 그러나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
11. 구원주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영혼의 구원>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육신도 고쳐주고 <육의 세계>도 잘 되게 해 주었다. 두 가지 세계를 해 줘야 된다.
12. 육신을 통해서 영혼이 존재하니, 영혼을 구원하려면 육신을 구원해줘야 된다. 육신이 죽으면 육신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하거나 좋아지거나 하나님을 닮게 인격이나 지혜롭게 변화되지 못한다.
13. 같은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었어도 조금 믿다가 육신이 일찍 죽은 사람들은 영이 조금밖에 변화가 안 되어 있다.

14. 우리 <영>이 ‘과일’이라면, 우리 <육>은 ‘나무’와 같다.

15. 과일나무의 과일을 크게 하려면 과일에 영양을 바르고 주사를 놓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퇴비해서 각종 영양을 넣어 나무를 통해서 키운다. 이와 같이 <육신>을 통해서 <영>이라는 과일을 변화시키고 키우고 완성 시키는 것이다.

16. <육신>을 구원해 주고, 낮게 해주기도 하고, 건강하게 해 주기도 하고 잘되게도 해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영>도 변화가 빠르고 잘 된다.

17. 육신이 병들어 활동을 못하는 자는 영이 활동 못하는 영으로서 성장하니 그만큼 늦다.

18. 육신이 많이 행하고 뛰고 달리고 많은 행실을 하며 행하는 만큼 표적도 많이 일으켜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모양과 형상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개성대로 닮는다.

19. 이 세상에서 최고로 닮여진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최고로 크고, 최고 극적으로 위대한 영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권의 영으로 모양 형체가 닮여지고 변했을 때’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종같이 쓰이는 ‘구약적인 단계’로 세 번째 단계다.

20. <애인 급>은 금메달 급, <자녀 급>은 은메달 급, <종 급>은 동메달 급으로 구분이 된다.

21. <육신>을 구원해 주어야 <영혼>도 그 효력을 발하고 변화되고 크다.

22.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하리라. - 이것 하나만 외쳐서는 안 된다.

23. 육신도 잘 되게 자꾸 축복해 주고, 육신도 병들면 고쳐 주기도 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해 줘야, 영혼도 병들지 않고 잘 된다.

24. 하나하나 같이 뛰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하면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바로 <표적의 역사>다.

25. 시대의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가면, 그 자체로 생명권에 속한 영이 되므로 육신도 생명권에 속한 자가 된다. 그것이 <표적>이다.

26. 꾸준히 밥을 먹고, 정확하게 운동하고, 건전한 정신적인 생활을 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 법대로 하나하나 지켜 살며, 그 보내신 메시아와 같이 시대의 뜻을 펴며 가는 것이 <건강 비법>이다.

27.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나 걱정이 와도 하나님이 계시니 <뇌>가 충격을 덜 받는다. 그러나 아무 믿는 것도 없고 홀로 있으면, 자포자기하고 걱정근심하고, 그로 인해 뇌가 쇠약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니, ‘신경병’이 생긴다.

28. 자꾸 신경 쓰면 머리가 아프다. <뇌>는 예리해서 생각나는 대로 자극을 받으니 뇌에 대한 파장을 끊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도하고 고쳐버려야 된다.

29. 하나님은 ‘생각 실상 세계’라, 생각으로만 해도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알았다.” 하시면, 그대로 파장이 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다 행해 버리신다.

30. 늘 지나친 걱정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뇌가 형성된다. 행하는 대로 몸이 체질이 되듯이, 마음도 뇌도 생각하는 대

로 굳어버린다.

31. 선생은 어렸을 때에 앞날에 어떻게 될지를 놓고 그리도 걱정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선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잘 된다.’며 표상으로 보이셨다.

32. <영혼>도 승리하고 <육신>도 승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보통 승리가 아니고 더 이상 없이 승리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없는 세계에 도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33.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행하라. 그러면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표적은, 6000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자가 됐으니 표적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이상세계, 사랑의 극적인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34.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가 구원시켜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그들은 100%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보면 그 영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들을 쫓는 자들은 지금도 계속 믿고 따른다.

35.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의 존재자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다 깨뜨린다. 별집으로 만들어놓는다.

36. 모르니 믿고 따라간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는 것이다.

37. 메시아는 모든 것을 알고 외친다. ‘선지자’는 메시아가 온다고 외치고, 그 나라의 앞날의 운명을 예언해 준다. ‘사사’들은 힘이 좋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신다.

38. 메시아는 <때>를 정확히 맞춘다. 그 시대가 시계와 같이 맞아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시대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보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 세상이 맞아간다.

39. 예수님은 <때>를 알라고 했다. ‘무화과나무’를 보아라. 하나의 나무가 때가 되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면 봄이 왔다는 것을 알라고 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좋아지면 메시아가 온줄 알라는 것이다.

40. 메시아가 고통 받을 때는 민족도 같이 고통을 받는다.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니 민족도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41.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폭탄보다 20배 50배나 되는 폭탄을 터뜨리면, 아시아가 전멸되고, 원자력의 영향이 바람 부는 대로 가서 다 병들고 살이 썩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42. 운동선수라면 운동선수의 효능을 발휘하고 나타내며 도움을 줘야 된다. 메시아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43. 인간들이 자기 고집으로 해도, 하나님이 그 여건과 상황을 틀어놓으시면 꿈쩍도 없이 갈 길이 틀어진다.

44.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꼭 죽일 사람 120명씩 살려주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살려주고, 평화의 전쟁, 사랑의 전쟁을 한 곳에서 평화의 회담을 하게 되었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새벽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쳤으니, 모두 믿고 행하고 시대를 믿고 따라 행하는 자는 표적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이 민족이 몰라도 우리가 이 민족의 대표가 돼서 믿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돼 줬으니, 민족에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시고, 모든 북한도 한국그 머리들이 생각들이 뒤바뀌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인생들은 자기나라가 아니고 자기 세상 아닙니다. 살다보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주권자도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명예자도 그렇게도 권세자도 죽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믿고 행하지 않았으면 영혼마저 사망 길로 가서 영원히 불바다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러하고 우리 혼들도 그러합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과 주의 말씀이 이들에게 함께 하사 늘 행해서 표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내 말 한 것을 믿으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잘되고 형통케 된다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가 항상 일어난다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믿고 따르라!> 그것이 바로 표적을 일으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2.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 큰일이다.” 하셨다.
3. 주를 통해 하나님도 성령님도 행하시니, 믿고 따르라. 지난날을 생각하라.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한 것은 사람으로 끝났고, 하나님과 주로 말미암아 행한 일들은 거대하게 남아 지금 하고 있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 왔다.
4. 주를 통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하시니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역사가 일어난다.
5.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거기 붙어서 행하라.
6. 성령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잊어버린 것을 기억나게 하며 행하신다.
7. 행해보면 <성령의 생각>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안다. 우연같이 행한 일이지만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다.
8. 생활가운데 늘 성령께 기억나게 해 달라고, 생각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자꾸 성령 생각으로 해버릇해야 성령의 생각도 구분하고, 자기의 생각도 구분한다.
9. 성령께서 늘 행하게 해 주어서 이제 해버릇하는 습관이 되었다. 자기가 습관 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도록 성령이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해 주셔서 본인이 하는 것이다.
10. 본인이 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되도록 아예 만들어 뒀다. 그래서 자기의 사고가 되고, 자기 마음이 되어서 행하게 해 놓았다.
11.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라.
12. 항상 사람은 첫 번째로 보면 <육적>으로 본다. 사람은 ‘눈에 띄는 것’만 알지만, 성령은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 성령의 감동은 항상 그렇게 온다.
13.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대개 ‘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야 된다.
14. 따르는 사람이 잘못했어도, 지도자를 따르다 그런 일이 생겼으니 결국 지도자 책임이다. 신앙 안에서는 주를 따라오다 보니 환난도, 어려움도, 힘든 일도, 실수도 일어나게 된다.
15. 흔히 지도자는 “너 때문이다. 네가 잘 좀 하지.” 하고 지적만 하고 끝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원칙이다.
16. ‘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 양심의 소리요, 근본의 소리다.

17. 교역자들이 어떤 일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감점’이 되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난다.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근본을 따져 놓고 보면 지도자 책임이다.
18. 섭리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 책임 분담을 못한 것이 많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 가다보니 이런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받고 고통도 받는다는 것이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
19.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채워 주시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성령>이 해 주시니, 성령을 믿고 따르라. <성자 주>가 해 주시니, 주를 믿고 따르라.
20. 자기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해 주니,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중히 여겨라.
21. 성령은 <주>로 말미암아 감동을 주면서 <주>를 통해 행하게 하고, 말씀도 해 주신다.
22.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살고, 주를 따르다보니 많은 어려움과 고통도 일어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그렇게 보신다.
23. 우리가 할 때는 착오가 많이 생긴다. 착오를 일으키며 자꾸 연구를 하는 것이다. 실수를 한 사람은 다음에 안 하게 된다. 야심작을 쌓을 때 착오를 겪으면서 더 좋게, 더 이상적으로 다섯 번 무너졌어도 여섯 번째 기어이 쌓았듯이 그리 하는 것이다.
24.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착오가 많아진다.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이 감퇴한다. 암기를 자꾸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면서도 본인은 모른다.
25. <뇌>는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전혀 모른다. 기억이 나는 것만 중심해서 하고 끝나지, 더 이상은 생각을 안 한다.
26. 기도를 많이 하고, 간구하고, 정신적 세계에 도전하고, 생각 세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기억나게 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성령께 약속 받은 것은 기억이 난다.
27.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여라. 남이 해 줄 것을 원하지 말고 지도자가 해야 된다. 지도자는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 전부 해야 된다. 남을 시키는 지도자는 지도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28. 하나님이 본인에게 깨우쳐 줬으면 본인이 행해야 된다.
29. 선생은 늘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화살>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화살은 한 번 잡아당기면 과녁판에 기어코 맞춘다. 가다가 중단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30. 월남전을 성경책 읽듯이 읽어야 된다. 그래야 그 깊은, 목숨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다.
31.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화도 두 번, 복도 두 번.” 이다.
32.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생각대로 정확하게 심판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따진다.
33. 심판 때는 잘못된 것이 웬만하면 다 걸린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자기를 생각하고 죄인시하며 늘 회개해야 된다.
34.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절대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나 매일 ‘자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사는 자는 깨끗하게 산다.

35. 조심하라. 기분이 좋다고 날기만 하지 말고, 기분이 나쁘다고 기기만 하지 마라.

36. '지도자'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본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다.

37. <자기 관리>를 철통같이 하라. 자기를 주관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자아 주관을 하면서 남도 살려라.

38. 자기를 늘 죄인시하고, 항상 자기를 버리고 주님 따라 간다고 할 때 제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건이 없다.

39.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른다.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때는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빨리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늘의 계시를 다 받을 수 있다.

40. 누구든지 '나 때문에 그렇다.'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나를 따라오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신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이 계속 일어난다.

41. 믿고 따라오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나 때문에 그렇다.'하고,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난다.

42. 평화의 역사의 때에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평화의 표적을 계속 일으키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게 해 주시고 말씀했으니 모두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을 내 보낸 자로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자는 자꾸 그대로 못하니까 되는 것이 잘 안 된다."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낸 자의 말을 들으면 표적이 일어나고, 안 될 것도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틀어서 되게 해 주마."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참 많습니다. 우리 월명동, 하나님이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문제 있는 것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서 문제도 있고 하오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뭘 해도 잘 모르니, 성령의 감동을 받아라. 그러면 뭘 기도할지 모르니라." 했습니다. "뭘 기도할지 알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해야 기도할 것을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니, 그때까지 깊이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아는 자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이고.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행하니 늘 표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는 많은 생명들을 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해에 불같이 뛰고 달리면서 선교를 하오니, 많은 생명들이 이에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성령과 같이 행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뛰고 달려라. 어디에 뛰어야 될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라. 원망도 없이 자기를 탓하며, 자기 부족을 깨닫고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면 자기의 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은 심판 거리가 되고 말며 망신을 당한다." 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섭리사 전체가 모두 화평의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따지기에 달려 있다. 남을 죄인시 하며 따지는 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 되어서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로는 잘 안 한다. 그러나 자기로부터 일어난 일들임을 늘 기억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의 입으로 이들을 죄를 회개하오니, 이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온전히 될지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표 나는 불가능한 일이 행해지지 아니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나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안 해서 일어나는 일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깨닫고 행하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당하며 행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가 있사오니 민족적인 일들입니다. 국방의 일들.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하는 이 시대에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북한도,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모두 평화의 회담을 이렇게 하게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행하니, 잘되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 감동시키면 뒤집어지고 행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지켜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시대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틈타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대군이 가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신부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시대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평화가 종지부를 찍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가 모두 열광하고 세계가 전부 쳐다보는 핵심지 나라. 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두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평화의 시작의 나라가 이 나라다. 평화의 모든 끝을 맺는 나라가 이 나라다. 전쟁의 시작이 이 나라다. 전쟁의 끝이 이 나라로 매듭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세계를 외부와 내부로 말씀했습니다. “성약역사의 전쟁의 시초가 이 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끝을 이 나라에서 지어야 한다. 시작과 끝이니라. 이 나라에서 북한과 한국의 전쟁이 시작됐고, 이 나라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했습니다. 전쟁의 끝도 시작도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게 하나님은 행하시오니, 만군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행해야 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놓고 저울질 하시며 행하시니,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독점적으로, 독단적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행하십니다. 사람이 감히 누가 여기서 이유를 달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기를 우리 전체 섭리나라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전쟁의 두려움과 공포를 생각해 보라.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아라.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안 일어나게 해 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좋아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금년도는 선교하는 해다.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나라들이 그리 되게 해 주시고, 섭리의 나라 각 교회들이 그러므로 선교에, 생명 구원에 불이 붙어 행하니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하오니,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각자 모두 기도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들이 같이 기도하오니, 섭리의 나라가 잘 되고 형통되게 해 주시고, 항상 자기 관리를 완벽히 하여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삶으로 늘 우리가 행하게 해 주시고, 항상 정신 차리고 물샐틈없는 완벽한 그런 생활로 계속 진정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섭리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섭리를 성령과 계획하는 조은이,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로 지혜로, 지식으로 사탄과 흑암의 세계를 이기며 계속 가게 지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섭리에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잘 되고 형통케 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탓하며 ‘나 때문에 이랬구나.’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 해결된다 했사오니, 그리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대로 행하기를 기도 합니다. 모두 잘 되고 형통되되, 희생하며, 열심히 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모든 생각을 다하며 연구하고 노력하고, 잘 된다고 해이해 하지 말고, 근신하고 걱정하며, 그리고 열심을 다하며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걱정을 주께 맡기고, 허리띠를 그리 매고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내 손이 닿는 대로 더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풀게 은혜를 더 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이 행함에 함께해 주시고, 이제 여기 왔으니 약한 자, 연약한 자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 주시고, 영원한 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고, 사탄의 사탄의 손에서 끌려놓나니 다시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뛰어다니는 이들이 될지어다. 영계의 세계를 보면 육신이 보는 세계와 전혀 다르니, 영적 문제를 풀어 놓아라. 사탄이 쥐고 있다. 마귀가 쥐고 있다. 그들이 다스리고 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함이 이들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이 모든 섭리의 나라에 충만하고, 각 나라에 충만하며, 그때마다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라. 성령께서 행하는 일이니라. 성령과 늘 대화하며, 간구하며, 사랑하며, 현실 속에 사랑함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의논하고 말하며, 속말을 하며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문제들, 국가 문제들, 이치가지 모든 각종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이제부터 모든 섭리의 나라 전체가 수만의 무리가 기도 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말을 정말로 생활 가운데 늘 진행하게 해 주시고,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고, 약한 곳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키시고, 사탄과 마귀를 소멸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뛰고 달리며,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나와 함께 하사 항상 이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노니 잘 되고 형통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믿으면 표적을 보여 주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상적인 것들을 행해 주신다.
2.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을 때 표적을 보이신다. 모세 때는 <모세>를 믿었을 때, 표적이 일어났다.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르니 애굽에서 벗어나는 표적이 일어났고, 애굽에서 나온 후 안 믿으니 표적은커녕 화가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

이 일어났다.

3. 믿어야 표적이 일어난다! 안 믿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펼 수 없다. 고로 <믿는 것>이 표적이다.

4.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낸 자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니 표적이 일어났고, 잘 안 믿을 때는 표적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심판과 책망이 일어났다.

5.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대로 행했을 때는 표적이었지만, 행치 않았을 때는 표적은커녕 표 나게 혼났다. 결국 화를 입게 되고 죽음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

6. 요나는 니느웨 성에 말씀을 외쳐봤자 사람들이 안 믿고 불신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요나의 생각 밖으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

7.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는 그릇에 물을 가득 담으면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듯이, 그 머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담을 수가 없다.

8.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니느웨 성에 안 간 것은 평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불신했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제>와 다르고, <오늘>과도 다르다. 자기가 평소에 했는데도 안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다르니 무조건 해야 된다.

10. 전에는 요나 자신의 말을 전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니 '하나님 말씀의 표적'이 일어났다. 곧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난 것이다.

11. 사람의 제일 큰 표적은 '죽는 데서 사는' 표적이다. <이 시대에 제일 큰 표적>은 부활기 때에 주와 같이 믿고 행하니 살아난 표적이다.

12. 행하면 살아난다. 행동할수록 살아난다.

13.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살아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행할 때 살아난다.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14. 요나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15.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온전한 말을 못 전하니까 표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온전한 시대 말씀을 <주>로 알고 전하니 바로 니느웨 성같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나는 표적이 일어났다.

16. 살아났으니 하나님을 이 시대 급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신부가 되리라. 사랑치 않으면 신부가 안 된다. 혹은 자녀 권으로 사랑해도 신부가 안 된다.

17. 사랑에도 차원이 있다. 종이 주인을 사랑해서는 종밖에 안 된다. 아들이 사랑하면 사랑해도 아들밖에 안 된다. 사랑의 본질이 다르다. 신부로서 사랑하면 신부가 된다.

18. 애굽에 사는 자는 신광야를 모르고, 신광야에 사는 자는 가나안복지를 모른다. 이같이 구약인들은 신약 역사에 와 보지 않아서 신약의 하는 일을 알 수가 없고, 신약인들은 성약역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

19. 그 사명자는 그 사명을 계속 한다. 원숭이는 다시 와도 원숭이 생활만 하고, 독수리를 보내면 독수리의 행위를 하고, 치타를 보내면 치타의 행위를 한다.
20.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아들로써 아들 사명만 계속 한다.
21. 성약시대는 신약시대 때 약속한 것을 이루는 시대다. 이 시대는 아들이 오지 않고, 성약시대 주인이 신랑으로 온다.
22.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약 시대 때 모세의 육이 오거나 혹은 모세의 영이 다시 오지 않았다. 신약시대 때는 신약의 주인이 왔다.
23. 구약의 모세는 신약 때 육신이 없으니 영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주인은 못 되었다.
24. 이치(理致)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25. 과거를 보아라. 그와 같이 미래도 그러하느니라. 과거의 사연을 생각해라. 과거에 해 준대로 해 주리라.
26. 구약역사와 신약역사와 성약역사는 역사 자체가 다르니 주인도 다르다. 구시대는 신시대를 따르는 것이 법칙이다.
27. 신약 때는 신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서 나고 커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신약의 말씀을 주고 신약역사를 2000년간 펴셨다. 육신이 죽었어도 영을 가지고 계속 역사하셨다.
28. 기독교인들의 육신 부활은 당치도 않는 말이다. 2000년 후에 예수님이 활동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육신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29. 당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만 봤지, 죽은 후에는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육신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육신이 나타나서 매일 만나 줘야 하는데 영체만 나타났다.
30. 육신에게는 육신이 나타나야 효과가 있다. 영에게는 영이 나타나야 효과가 있다. 그러니 영계에 가면 예수님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고 영체가 나타나서 만나 얘기했다.
31.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낸다. 그 사람이 하면 계속 그 사람의 주관권이다.
32. 구약은 4000년에 끝났어도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다. 신약의 메시아 열차를 못 탄자들은 지금도 구약열차를 타고 신약이 온 만큼 왔다. 아담 후로 6천년 동안 계속 구약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33. 신약도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빨리 내려서 갈아탔어야 했다. 갈아탈 때, 시대가 바뀔 때는 헛갈린다. 이때 갈아타기를 빨리 해야 된다. 신약인들이 못 갈아타니 2000년이 넘고 19년이 되도록 계속 신약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34. 왜 갈아타지 못하는가 하면, 첫째는 ‘전환기’라 그러하다. 길을 가다가 길이 또 하나 나타나면 헛갈리듯이, 신약과 성약의 전환기 때는 헛갈린다. 새로 나타난 길은 새로운 세계다.
35. 또 하나는 ‘새로 나타난 길’이 ‘좁고 작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역사가 오면서 말세 때는 헛갈린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36. 예수님은 앞에 가시며 “좁은 길로 가라. 멸망 길은 넓은 길, 구시대 길이다.” 하셨다.
37. 새 시대가 왔는데 구시대에 있으면 멸망 길이다. 아주 멸망 길은 아니고 신시대보다는 어두운 주관권이다. 아주 멸망 길은 사실상 안 믿는 사람들의 길이다.

38. 섭리역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이미 기독교가 있는데 새로운 길이 나타나니 헛갈렸다. 믿을 것은 말씀 밖에 없었다. 따라와 보니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가 맞았다.

39. 또 하나는 부활기 때 헛갈린다. 부활돼서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 헛갈린다. 부활기부터는 영적생활로 접어들어야 된다. 영적인 삶, 영적인 역사를 펴야 된다.

40. 육적인 역사를 펴면 살아나지도 않고, 영적인 말씀을 주지 않으면 살아나지도 않는다. 영적으로 가야 된다. 육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41.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육적 생각이다. 주는 영이요, 너희는 육이니라. 주의 생각대로 하여라.

42. <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주>만 보고는 안 믿어질 때가 많다.

43. 믿어야 병을 고쳐 준다. 믿는 자는 고쳐 주고, 안 믿는 자에게는 손이 안 가진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서, “역시 믿고 따르면 표적이 일어난다. 옳은 말씀을 듣는 표적을 보리라.” 오늘도 우리 섭리인들이 부지런히 뛰고 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기요, 지금은 영적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 때요, 생명의 열차를 타고 가야될 때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육적인 역사였지만,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영적인 세계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적인 말씀은 별 표적이 안 일어났고 영적인 말씀으로 표적이 일어났고, 그 영적인 말씀을 행할 때에 영적인 행위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났습니다. 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한 곳 함께해 주시고, 문제 있는 곳 함께해 주시고, 이 진리를 불신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 구시대 열차만 타고 계속 달리는 저 구시대 사람들, 젊은이들을 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정거장마다 우리가 모여 앉아서 시대의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사오니,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 신약시대에 열심히 한 자들 이리로 불러 주시고, 형식으로 신앙생활 한 자들 불러 주셔서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 줄 테니 보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펴는 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3.16! 보다 차원 높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더 신부로서 거듭나려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로운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 했습니다. 그런 자들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3월 1일, 새로운 날, 또 3월 달을 진행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월명동,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감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해 주시고, 흑암도, 사탄도, 인사탄도, 감정을 품은 자들도 다 끊어지고 잘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북한과 한국, 모든 민족의 전쟁의 문제들이 다 풀려지고 평화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니,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복음을 들어야 이 시대 사람이 평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치료하는 광선을 더 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치료된다 했으니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표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 앞에 감사하고 간구합니다.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차타고 다니고 날마다 위험한 데 다니고, 산업재해들 각종 재해들이 있습니다. 이 재해들에서 벗어나며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들도 조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한 것, 부지런히 지키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2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믿으면 표적이 일어난다. 성령을 믿고 감동받고 행해도 표적이고, 주를 믿고 따르면 표적이 일어난다.
2. 표적이 뭔지를 모르니 표적을 봐도 표적인지 모른다. 표적은 ‘불가능한 것이 된 것’이 표적이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 표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3. 가령 산에 노루를 잡는 것을 표적으로 했는데 토끼를 잡았으면, 자기는 표적이 안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하니 그와 같이 되게 하셨다.
4.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면 표적을 구해서 일어났어도 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안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표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5.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니 자세히 잘 봐야 된다. 원 주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6.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표적을 못 봤다고 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 실감이 안 나고, 생명력이 없고,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7. ‘땡’을 못 잡고 ‘새’를 잡았어도 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것’도 표적이다. 알고 보니 국가 보호구역이라 잡기만 하면 법에 걸려 끌려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못 잡은 것’이 하나님께서 표 나게 도와주신 것이다.
8. 치타가 뭘 잡으려다 못 잡아먹었다. 그런데 잡았으면 옆의 사자들이 지키다 쫓아와서 공격당했을 것이었다.
9. ‘안 간 것’도 뜻이고, ‘한 것’도 뜻이다.
10. 무슨 일이 안 됐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다른 길로 가게 됐어도 투덜거리지 말라. 해(害)를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게 도우신다. 어떤 것은 ‘잘 됨’으로 인해서 도리어 ‘화’를 받을 때가 있다.
11.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줄 아느냐. 자기의 제일 좋아하는 일을 행하면서 간다.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다보니 지옥에 가 있게 된다. 지옥에 가는 길은 슬픈 일도 아니요, 고통 받는 길도 아니다. 지옥 가는 길이 고통, 아픔, 번민이라면 사람들이 무섭다고 가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왔을 것이다.
12.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대개 많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 많다. 그러니 고생되어도 생명 길을 가라는 것이다.
13. 끝까지 고생길이 아니다. 초반에는 고생과 고통을 겪었어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세계를 가니 고통이 아니다.
14. 곤고할 때,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는 생각하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늘 감사하라.
15. 하나님께 맡겨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부지런히 이리저리로 틀고 잡아당기고 밀고 깎고 끊으신다. 어련히 알고 해 주겠느냐. 알아서 해 주실 테니 네 생각하지 말고 좋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16. 표적을 알아야 한다. 표적을 모르면 표적이 일어나도 잘 모른다. 사람들은 항상 주를 믿으면서 특별히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마술쇼를 하듯이 스킬 있는 것만 표적이 아니다.
17. 하나님과 주를 믿으면 표적이 일어나리라.
18. 길을 가다가 돈뭉치를 줍거나 금반지를 줍는 것을 표적으로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잃어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야비한 일을 할 수는 없다. 혹은 관리를 잘 안 해서 한 번 뜨끔하게 잃어버린 꼴을 당해서 안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역시 흔치 않다.
19. <표적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면 ‘사망 길을 벗어나서 생명 길로 가는 것’ 자체가 표적이다. 평생 일생동안 계속 표적이다.
20. 섭리를 나간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표적, 악적인 표적, 사탄이 역사하는 표적이 일어난다. 사망 길로 가는 표

일을 영원히 겪는다.

21. 섭리를 벗어나서 기독교로 간 자도, 불교로 간 자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시험에 떨어지면 저기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무, 한 가정, 하나님의 한 세계다. 온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2.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우리 종교 주관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온 세계 전체를 다 통치하신다.

23. <하나님을 따르는 자체>가 표적이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보면 평화의 세계로 다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라.

24. 믿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력 역사의 계속적인 표적이다. 믿고 따르면 생명 길로 가니 표적이 계속 일어난다.

25.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원했으나 예수님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 했다. <주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26.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 맡기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행하시니 표적이 일어나고, 영적인 능력의 표적이 일어난다.

27.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지구촌에 표 나 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죽음에서 살아난 표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표적’, ‘축복해주는 표적’들이 계속 일어났다.

28.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자기에게만 보이는 표적’도 있다. 개인에게 해당되는 개인의 위치에서 해당되는 일을 하며 책임분담을 하니 그 사람에게만 표적이 일어난다.

29. 주를 믿고 따르면 ‘진리를 아는 표적’, ‘참을 아는 표적’, ‘분별의 표적’, ‘안 되는 일이 되는 표적’이 일어난다.

30. 주를 따라다니면 매일 표적이 일어난다. 표 나 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믿고 따라야 계속 일어난다.

31. 주를 믿고 따르면 ‘주를 보는 표적’이 일어난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주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주를 믿고 따라가니 메시아를 보는 표적이 일어났다.

32. 예수님 때 예수님을 보는 표적은 3년 밖에 없었다. 3년 동안에 깨닫고 본 사람만 실제 살아있는 육신을 보았다.

33. 호랑이 없는 골짜기는 토끼가 왕 노릇을 하듯, 새벽별 뜨기 전에는 일반 별들이 왕 노릇을 한다. 그러나 새벽 별이 뜨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해 뜨면 별이 하나도 없어진다.

34. 하나님이 보낸 자가 뜨면 종교, 문화, 예술, 정치까지 흔들고 나간다. 예수님이 정치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 보고하는 대로 다 돌아갔다. 때와 시기를 따라 돌아갔다.

35.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증거 하러 온다. 표적이 일어난 것을 깨닫고 행하라.

36. 우리가 할 일을 크게 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37. 어떤 사람이 가다가 낙심해버려도 그것이 표적이 된다. 비가 하나도 안 오게 만들어 바짝 마른 다음에 비가 와서 확 흡수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낙심했던 자가 일어나면 확 일어나게 된다.

38. 최전방에 있는 증거자가 부활기에 맨 마지막에 살아났다. 치타 어미가 치타새끼를 위험한 데서 다 물어다 옮겨 놓은 뒤, 나중에 혼자 걸어오는 길에 사자들이 둘러싼 격이었다.

39. 이를 보고 주가 독수리 작전을 감행했다. 독수리가 치타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면 끝난다. 사자들은 땅바닥에 기어 다닐 수밖에 없다. 치타를 들어다 갖다놓은 다음, 기어코 가서 작전을 하고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일어났다.

40. 살려놓으니 표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했다. 증거자가 뜨니 3년, 8년씩 해도 안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사역자, 핵심자가 뜨면, 그것이 표적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면 표적이 일어난다 해서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믿고 따르는데, 생명의 역사의 길로 가는 표적이다. 나머지 일어나는 표적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각양각색들이 다 안 된 것도 표적, 된 것도 표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행하겠느냐. 이것을 깨닫고 행하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회세계에도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면서 시대에 해당되는 표적을 계속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두 알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못 깨달아도 하나님이 행하니 항상 감사하다고 항상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표적이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모든 악인들과 반대하는 자들과, 지절대는 자들과, 모든 귀신들이 하는 행위들을 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사이미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날도 하나님이 표적을 일으키시고, 행하십니다. 주와 더불어 행하는 모든 일이 표적이요, 권능이요, 전지전능하신 일들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세계에 표적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 감사합니다. 역사를 계속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계속 같이 끌어안고 사는 삶이 연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은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요, 하나님도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 했습니다. 왜 성령이 여자인데 신랑이지? 하나님의 몸과 일체 된 몸이니, 하나님은 남자이니 우리의 상대신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지, 누가 성령의 대신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대신자인지, 누가 주의 대신자인지, 누가 성령의 대신자인지 잘 모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고 행하고 따르게 해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부활기의 역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차원 높이는 휴거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정한 날에 이상적인 휴거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 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함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교하는 시대라, 하나님이 선교하자 했으니 같이 해야만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정은이 야비하게 야박하게 하는 그 모든 계략의 일들을 다 깨 부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 근본을 해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였은즉, 모두 평화의 열쇠로 따 놓은 바가 됐으니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댐을 막아 놓은 것을 다 터 놔 버렸는데, 포클레인 갖고 아니 되고, 모든 것을 다 끌어 잡아당겨 놓고 지진을 일으켜서 터 놔버렸는데 물이 한 방울이 있겠냐. 모든 복한의 핵무기들이 좌절돼서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되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젓값을 대신 받게 할 것이고, 근본을 해결할 때까지 계속 한다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믿을 때 표적이 근본으로 일어나지, 근본으로 사랑하고 근본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광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왜 안 됐나.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안 됐나. 그냥 그럭저럭 해서 조금한다고 될 것 같으나. 100% 목숨을 걸고 1000m를 뛰어내려야 그때서 인정을 하지 그전에는 인정을 안 한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절대신이 임해서 역사하는 자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행할 때만 인정해준다. 그 전에는 전혀 1000년이 가도 인정을 안 하고 손해 가는 것이 없으니까 안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심을 알고 이들이 그렇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완벽하게 행하는 주와 더불어 하나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이나 속아봤나. 속지 않는다. 완벽히 행하라. 하나님 앞에 완벽히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매일 부르고 수백 번씩 부르고, 성령을 수백 번씩 부르고 늘 대화하며 얘기하며 사정을 털어놓고 주를 부르며, 늘 주와 같이 의논하고 행하도록 하라. 그리해야 잘되고 형통된다 했습니다. 주를 맞는 자들이 아직도 제대로 맞지 못하고 부족한 자들이 많습니다. 모두 알지 못하여서 그러지만, 모두 뜨끔하게 깨우쳐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되고 온전함을 받을지이다. 병든 정신, 병든 뇌, 모두 흐릿한 것들 다 깨부수게 해 주시고, 그가 와서 질그릇 같이 다 깨부숴 버리리라 했습니다. 하나도 놓지 않고 다 깨부숴 버리고 새로운 시대 역사로 세우는 일에 그리함을 받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제 표적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매듭짓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표적이 따라가리라.’ 하는 말씀을 모두 매듭짓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니 계속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실천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골짜기에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상이 없게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려움들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나무 사놓은 것, 빌빌대는 나무들 전부 하나님께서 다 살려 주시고 건강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생명을 살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다 놓으라고 한 나무들이 관리를 못 해서 죽이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시고 표적의 역사, 생명의 표적의 역사가 우리 육들도 나무들도 여기 해

당되는 것 모두 다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민족 것도 또 세계 것도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건강, 영도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고 감동 감화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에게 모든 표적을 일으켜 건강케 하노니 강건함을 기도합니다. 신앙에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이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고, 악한 자들, 불신하는 자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다 깨부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같이 카드 하나 갖고서 모두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 야비한 생각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털어놓고, 100% 그렇지 않으면 역시 평화적인 역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손해나. 모두 놔두면 다 바닥나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은 경제가 바닥이 났어요.金正은이 갖고 있는 돈까지 써도 이제 안 됩니다. 일개 국가의 경제가 넘어가는데, 개인 돈이 있어도 그거 갖고 되겠느냐. 목구멍에, 역시 배고파 창자가 마르는데 풀칠하지. 만군의 하나님, 모든 자들도 그러합니다. 악인들도 조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정신과 사상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심판거리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두 온전케 해 주시고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해 주시고, 시간 지키며 모든 일을 철저히 부지런히 뛰고 달리며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을 멸하며 흑암이 물러가며 악인이 물러가며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섭리사 계획 담당 하는 모든 조은목사 중심한 그 스텝 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 총명, 모략,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계획하고 모두 진행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뛰어나게 해 주시고, 담대력과 기획력이 뛰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되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계획하면 그 일을 행하는 무대 진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시고, 경제의 은혜를 주시고, 모든 각종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지체로서 부지런히 열심히 지혜롭게 슬기롭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옛날에 전성기에 역사를 펴듯이 후반기의 모든 부활기의 역사를 펴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기는 영적 역사요. 영적 역사는, '주는 영이니 너희는 육체다. 모두 믿고 따라서 영과 육이 하나 되라.'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기도해서 기도의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표적이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니,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계속 감행해 주시고, 민족도 세계도 꿈쩍 못하게 통솔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 온 인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럭저럭 하면 너무 억울하오니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고 주관하시되 우리 섭리의 중심권을 통해서 계속 밀고 나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도, 큰 어떤 것을 할지라도 누가 어린 아이가 하나 시작해서 주로 인해서 전달되어 그로 인해서 역사를 뒤엎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깨어 행하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 말씀 마쳤어요.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사랑으로는 일생동안 낙을 삼을 수가 없다.
2.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을 근본으로 수많은 가짓수를 매일 그때마다 합당하게 행하신다.
3.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일하는 일, 전을 가꾸는 일이다.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는 하지 않는다.
4.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주관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낙을 삼는 것'이다.
5. <시대를 쫓아 그때마다 행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들이다.
6. 항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깨닫고 느끼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 신령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노래해야 된다.
7.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육적으로 사랑하나 영적으로 사랑하나 동일하다.

8. 사람은 육에 속한 '육인체'라 죽는다. 사랑하는 자가 죽어버리니 허무하기도 하고, 본인이 죽어서도 허무를 느낀다.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 곤고하고 허무한 것이 연속된다.
9. 물질을 사랑해도 곤고를 느끼고 허무를 느낀다. 사람이 자기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도 영원치 못하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곤고를 느끼고 허무를 느끼는 것이다.
10.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를 느낄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이 영이시니 믿고 사랑하면 영원한 존재자가 되므로 곤고를 면한다.
1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에 해당되고, 영이 이익을 보고, 영이 사망권을 벗어나게 되고, 영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허무치 않고 곤고하지 않고 영원하다.
12.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거스르지 않고 심정에 맞게 하고, 심정을 알아주며 같이 그 일을 풀어주고, 마음이 일체 되고, 몸도 일체 되고, 생각도 일체 되는 삶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요, 일이다.
13. 사랑하는 자는 늘 마음이 하나 돼서 기쁘고 즐겁고 이상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14. 하나님은 그 사랑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본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을 받음으로 나가는 사랑이 있다.
15. 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공의가 없어진다. 부모의 사랑도 기본적인 사랑도 있지만, 자식이 잘 하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된다.
16.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산다. 이는 아무 때나 통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시대>가 왔을 때 그렇게 통하게 된다.
17. 지금은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 하였듯,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해야 될 때다. 시대가 사랑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 <사랑의 역사의 때>다.
18. '사랑의 시대'가 왔을 때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다. 사랑으로 대해야 알아준다.
19.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몸도, 마음도, 영도 몽땅 사랑해야 된다. 마음만 사랑하고 몸은 다른 세계에 신경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몸도 마음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20.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휴거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사랑으로 인해서 시대 뜻을 뿔고, 사랑 때문에 말씀을 줬다.
21. 사랑해서 말씀의 인봉을 떼게 되었고, 하나님 역시 사랑해서 주께 임하셨다. 하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22. 세상 사람들은 각종 낙을 삼는다. 먹는 데 낙이요, 입는 데 낙이요, 돈 버는 낙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허무로 끝났다.
23. 누구든지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랑과 낙은 허무로 끝나게 되어 있다. 육신도 마음도 같이 달려있으니 영혼을 구하지 않은 자의 육신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다.
24. 이제 시대를 알고 살게 되었으니, 주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라. 이론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곤고함을 면할 수 없느니라.

2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낙으로 삼고, 더 신경 써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사업을 사랑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26.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는 육적인 낙은 사실상 허무주의로 되었고, 곤고한 세계로 되었다. 집을 짓는 것, 예술적인 것, 돈 버는 것들은 영혼에까지 영원토록 영향을 주지 못한다.
27.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육적인 세계, 순간순간의 세계다.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무지한 생각이다.
28. 재벌가라고해서 다른 사람보다 3배, 4배 더 잘 먹고 살고 즐겁게 살지 않는다. 매일 신경 쓰고, 어려움을 겪고, 눈물겨운 일을 겪는다.
29.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예술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30.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예술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신앙에 대한 것도 꽃을 피우며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 낙을 누리게 되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자기에게 영광이요, 영화요, 면류관이기 때문이다.
31. 세상에 많은 재벌가들이나 큰일 한 사람들을 만나 봐도 그렇게 큰 기쁨의 즐거움을 갖지 못하고, 낙이 없고, 곤고한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에서 하니 늘 곤고와 어려움에 빠지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산다.
32.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웃음과 희락 속에 살게 되는 것이다.
33. 선생은 기독교에 33년을 있었지만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 말씀 배우러 가면 늘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희망도 없고 특별한 낙도 모르고 개미처럼 일만 했다. 하나님을 두렵게만 보고, 무섭게만 보고, 심판한다고만 생각했다.
34.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아라. <신부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35. 말씀의 실상세계다. 말씀하는 대로 실상이 이루어진다. <어느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36. 이 시대는 사랑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사랑의 역사가 최고로 일어나고 있다.
37. 너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가는 세계다. 결국은 주로 말미암아, 섭리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평화의 세계로 붙들고 갈 수밖에 없다.
38. 우리는 40년 간 완벽한 사랑의 조건을 세우며 하나님을 모셔왔다. 우리의 혜택을 민족도, 세계도 많이 봤다. 최고 덕을 보면서도 최고로 미워하고, 반대하고, 욕을 하고, 등지기도 했다.
39.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 역사의 조건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민족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신다.
40. 사랑하는 조건을 세운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생각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1.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처갓집이 된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처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할 정도로 사랑의 세계가 크다.
42. 하나님을 변함없이 극진히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으로 대하신다. 민족도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4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로 낙을 삼고, 낙을 누리며 살아야 삶이 기쁘고, 즐거움으로 세월이 가는지 모르게 산다.

44.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탄이 틈을 못 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역사를 이룰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다. 사탄도 사랑의 세계를 침범치 못 한다.

45. <구약>은 종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별 효과가 없었다. <신약세계>에서는 자녀급 사랑 밖에 못 일어났다. <애인급>에서 사랑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다. 한 몸이 되어 똑같이 움직인다.

46. 이성의 세계, 저 성의 세계의 사랑은 다 잘라버려야 된다. 휴거역사가 깨지면 끝나버린다. 3월 16일에 차원 높은 휴거를 하지 않으면 이론에 불과하다.

47. 차가 지나가기 전에 빨리 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끝난 다음에 몸부림치면 안 된다. 모든 일을 닦치기 전에 몸부림쳐야 효과가 있다.

48.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을 때 주와 같이 잘 된다.

49.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성전'을 주셨다. 가장 큰 역사 중 하나다. 집 장만하면 다 된 것이다. 이제 손님들 수시로 들랑날랑하고, 자녀권을 풍부하게 한다면 섭리사가 막강하게 시대 역사를 펴나간다.

50.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웃음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낙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함으로 낙을 삼고, 성령님이 늘 우리를 살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니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을 따라서 이들도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성자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그리고 생명들 사랑하여서 전도해 오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열렬히 살고 있사오니, 이 사랑이 꺼지지 않게 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채워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에게 모두 은혜를 더 해 주셔서 사랑해서 이들의 병을 고쳐 주고, 오늘도 많은 생명들을 고쳐 주고 가오니 은혜와 사랑으로 더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와 모든 민족과 세계의 섭리의 나라에 영영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함으로 낙을 삼고 산다. - 이는 신구약을 이루는 말씀이다.

2. 사람은 <상대성의 사랑> 없이는 '날을 수' 없고, '탄생'할 수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이 사랑치 않고서는 자기가 탄생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한 사랑의 결과체로 우리가 태어났다.

3. 아예 사랑으로 낳았기에 사랑으로 길러 주고, 사랑해서 축복 주고, 사랑해서 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4. 선생은 15세에 철학을 걸어치웠다. 다른 잡념,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이 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5. 물질로 태어났으면 물질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 사랑으로 태어났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다. 모든 근원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다.

6. 깨닫고 알았으면 아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 대화를 해야 그 사랑을 배우지, 대화를 안 하면 그 사랑을 못 배운다. 자꾸 대화를 해야 가르쳐주고, 또 사랑해야 가르쳐 준다.

7. 또 하나는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 준다. 배우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뇌 에서 작동이 일어나서 입력되고 받아들여진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배워도 들어오지 않는다.
8. ‘역사’는 그냥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행하면서 이루면서 펴 나가는 것이다. 배우는 것 가지고는 역사를 펴다고 볼 수 없다. 역사는 배우고 하나씩 실천해 가야 된다.
9. 역사는 이론이 아니다. 실천해서 이론 것만 역사다.
1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해서 따르는 사람을 사랑해 주고 이끌어 주기다.
11. 사랑하는 것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물에 빠졌을 때 끌어내 주는 것, 그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것, 그 마음을 알고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어려운 고통을 이끌어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다 사랑이다.
12.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 주고 이루어 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하게 해 주는 것이다.
13. 자기 혼자서는 뜻을 못 이룬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과 세계적으로 하면 세계적인 역사의 뜻을 이룬 것이다.
14.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듯이, 예수님이 시대의 말씀을 줘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듯이 해야 역사를 이룰 수 있다.
15. 이 시대도 시대 말씀을 전해주고 믿고 따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것이 ‘가정적’으로 한 것이면 <가정 차원의 뜻>을 이룬 것이다.
16. 하나님의 뜻은 전체 ‘지구상, 전 세계적’으로 해 줘야 <하나님의 근본 뜻>을 이룬 것이다. ‘민족적’으로 하고 마는 것도 하나님의 한 주권권의 일을 해 준 것 밖에 안 된다.
17.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세로부터 시작해서 민족과 세계로 복음을 넣듯이 이루어진다. 개인으로부터 가정, 민족, 세계 단계까지 이뤄나가야 다 이룬 것이다.
18. ‘개인적인 세계’, ‘가정적인 세계’에서 끝나면 <역사의 주인>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로 간다. 그 뜻은 그 주권권이 끝날 때까지 자자손손 이루어나간다.
19. 섭리사도 우리 민족만 펴으면 하나의 기독교에 속한 세계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가 오면 세계적으로 펴 나가서 매듭을 짓는다. 우리는 40년 동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20. 핵의 나라 한국을 중심한 일본과 대만, 세 나라를 중심해서 역사를 펴면서 세계로 역사를 폈다. <한국>은 ‘메시아 민족’이요, <일본>과 <대만>은 ‘내적 외적 두 증인’과 같은 입장이다.
21. 복음의 역사는 나무 크듯이 크다. 거름을 많이 하고 신경을 쓴다고 해서 한 해에 다 크지 않는다. 1년에 크는 한계까지 밖에 안 크다. 그것을 꾸준히 해서 크는 것이다.
22. 아파서 약을 먹어도 금방 표가 안 난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건강에 표가 나고, 근육 운동을 오랫동안 해야 근육에 표가 난다. 낙심할 정도로 표가 안 난다. 꾸준히 매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23.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두 번 사랑해서는 역사를 이룰 수 없다. 며칠 은혜 받고 후다닥 하고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기도하고, 새벽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금방 표가 안 난다.

24.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돌아도 지치기만 하지, 살이 별로 안 빠진다. 꾸준히 6개월씩 하면서 밀어붙여야 체질적으로 빠진다.
25.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차원도 며칠 했다고 하나님께 근본적인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선생은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개인, 민족, 세계로 이루었다.
26. 선교도, 전도도 지금 보이는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 1년 동안 해 봐야 안다.
27. 하나님을 사랑하되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줘야 된다.
28. 우리는 사랑으로 났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길렀고, 사랑으로 늘 축복을 주셨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29. 짐승이나 동물도 꾸준히 살피 주고, 꾸준히 대해 주고, 도와주면 계속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자기를 표현한다.
30. 섭리도 사랑해서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성장해서 결혼식을 한 것이다.
31.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 오랫동안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다. 산에서 다 배우고 내려올 때까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따르는 자들도 사랑하게 만들면서 역사를 이루었다.
32. 메시아라도, 선지자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이룬다. 전반전 때는 하나의 약혼한 기간과도 같았다. 후반전까지 다 하니까 그제야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맞춰서 휴거 역사를 하신 것이다.
33. 하나님은 줄 사랑을 다 주고서 바라신다. 사랑을 조금 주고서는 창조목적의 근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께 사랑을 다 주셨다. 주는 그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께 다 주면서 역사를 이루었다.
34. <주>는 시원찮게 사랑하는 것을 다 알아버린다. 그것으로는 역사를 못 편다. 그런 자는 진정 사랑하는 애인은 못 된다.
35. 선생은 끊임없이 불철주야 아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은 베드로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았다.
36. 감옥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자와 이야기하며 살았으니 말씀 받고, 노래 받고, 운동 예술, 문학예술의 세계까지 터득하게 되고, 건강세계, 의학세계도 받아서 행했다.
37. 시대 사명자는 하나님을 대해 봤기 때문에 안다. 조금 해서는 표도 안 나고, 눈에도 안 찬다.
38. 금덩이라도 조금 있으면 별로 표가 안 난다. 하루 이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그런 삶을 살아야 가야 된다.
39. 하나님은 사랑해서 휴거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은 이론적인 인정은 안 하신다. 실존적으로 해 났을 때 인정하신다. 사과나무를 심고 키워서 사과를 따와서 하나님이 먹었을 때만 인정한다.
40. 99% 해 놓고 인정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 왜? 사람은 99% 하다가 마는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41. 끝까지 한 자만이 인정으로 들어간다. 끝까지 했을 때 시동이 걸리면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 100% 해야 시동이 걸려서 돌아가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신다.
42. 하나님은 100% 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유지하신다. 그러니 망하지 않으신다.
43. 한번 신앙이 넘어지면 부도난 격이다. 가난하게 살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신앙 부도, 사랑부도, 믿음 부도, 말씀 부도가 난다.
44. 절대적이어야 한다. 시원찮게 하는 자들은 인정을 안 한다. 조금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룬다.
45. 월남전 때 보면 선생은 진짜로 사랑해서 살려주었다. 그 정도 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 실존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46. 하나님이 전체를 투자해야 하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려니 얼마나 어렵겠느냐. 1조의 금액을 맡기려면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겠느냐.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맡길 정도다.
47.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길 때 얼마나 엄청난 기준을 보시겠느냐. 하나님은 다 안 맡기고 조금씩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펴신다. 하는 만큼만 맡기고 속지를 않으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왜 사랑하게 된 것.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지구촌 온 천지만물 창조해 주셨고, 거기 또한 하나님이 성령과 사랑해서 우리 영이 났고, 육은 하나님이 시작한 생명들로 인해서 사랑해서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기쁨을 받고, 사랑으로 대함 받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서 모든 것을 줬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무슨 상관이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에게 용돈도 보내 주고, 사랑도 해 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그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사랑하나? 보이는 것 하고 무슨 상관이나. 사랑도 배워야 하게 된다고 했는데, 배우니까 하게 됐습니다. 은총과 은혜를 더 해 주시옵소서. 의와 사랑에 충만하고 영원할 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이 영원하고 영원할 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 어려움을 당하는 자 이들 위해서 모두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이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많은 생명을 인도하고, 금년도 하나님께서 '선교하라.' 한 말씀을 다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라는 것은 "금년도 때가 됐다. 부활 됐으니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므로 너희가 많은 생명들을 부활시켜라. 부활된 자가 부활시킨다." 했습니다. 그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섭리의 일을 하고, 계획하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철저히 하게, 사망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며, 사람을 다스리며, 모든 예술을 다스리며 나와 같이 행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극진함을 더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에 불타고, 성령님 사랑에 불타고, 성자를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며 불타고, 사랑 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사는 이들이 되도록 더욱 은혜를 더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이 있다.
2. 일하는 낙도 있고, 전도하는 낙도 있고, 가르쳐 주는 낙도 있고, 관리하는 낙도 있고, 봉사하는 낙도 있는데, 그 중에 '시대'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시대니 <사랑의 낙>을 삼고 살아야 된다.
3. 어느 시대든지 관리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섬기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구약시대>에는 종이 주인을 사랑하듯, <신약시대>에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나 이 시대 <성약시대> 때의 사랑의 낙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낙의 시대'다.

5. 시대를 구분하고 시대에 합당한 대로 살아야 된다. 구약시대, 신약시대같이 전도하고 일하고 관리하며 섬기는 것을 하되, 신부 입장에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정상적으로 가는 시대다.
6. <사는 맛>을 누리려면 절대적으로 시대를 쫓고, 때를 쫓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람을 중심한 만물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삶이요, 절대적인 순리요, 법칙이요, 근본이다.
7.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려면 하루 종일 말씀을 되새기며 몇 번을 봐야 된다. 시키면 바로 해야 된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할 일이다.
8. ‘종’은 관계성이 멀고 ‘자녀’도 멀되, ‘신부’는 한 몸이라 무엇을 시키면 바로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아직 ‘한 몸’이 못 되고 ‘두 몸’인 것이다.
9. 뇌에서 지시를 하면 육신은 바로 한다. 배구할 때, 축구할 때, 테니스 칠 때, 탁구 칠 때 뇌에서 지시하면 바로 한다. 이번에 만족하게 못 했으면 다음번에는 꼭 지시대로 해야 된다. 일을 하는 것도 이번에 못 했어도 두 번째는 꼭 해야 된다.
10. 따지기를 잘 따지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
11. 행하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 때 그리 크다. 생활 속에서 행할 때가 그리 크다.
12.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은 주가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여준다. 그러나 어떤 자는 두려움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구경으로 끝나고, 어떤 자는 말씀해서 일어난 것을 깨닫는다.
13. 행하는 자만 주인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소모하고 만다.
14. 말씀을 나뉘대로 주고, 그 말씀으로 휴거 역사가 일어난다. 절대적으로 행한 만큼만 일어나지, 그 이상은 안 일어난다.
15. <시대에 합당한 삶>은 이 시대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와서 말씀을 듣고도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길이 끊어진 것이다. 행함으로 길을 뚫는다. 섭리 안에서 행하면서 자기 개성의 길을 가는 것이다.
16. 하나님의 말씀을 개성대로 행해야 된다. ‘자기 위치’가 다르고, ‘직급’이 다르고, ‘관계’가 다르니 자기 위치대로 행하면서 가는 것이다.
17. <주>는 공의롭게 행한다. <주>는 듣는 대로 심판치 않고, 보는 대로 심판치 않는다. 보고 듣고, 분석하고 답을 내서 심판하신다.
18. <답을 주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이 답으로 행하시면, 답이 아닌 길로 가는 자는 전부 심판을 받고 간다.
19.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던 ‘소돔 땅의 심판’과 ‘니느웨 성의 심판’은 완전히 달랐다. ‘소돔 땅의 심판’은 타락된 자들의 심판이었고, ‘니느웨 성의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었다.
20. <누가 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돔 땅에 시원찮은 사람이 가니 그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같이 심판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갔으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심판받지 않았을 것이다.
21. 롯은 겨우 자기 신앙만 하다가 마누라까지 뺏겼다. 겨우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정도의 신앙이었다.

22. <주>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 어마어마한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좇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조금 조건을 세우고 따라오니 바로 부도나고, 일반적인 자들이 된다.
23. 롯도 원래 사명을 했으면 선지자급이 되었다. 사명을 못하니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부인 뺏기고, 딸들과 같이 살게 되어 정상이 못 된 역사가 일어났다.
24.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소돔 땅에 기준을 세웠으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세우고 계속 복음을 전파해서 나갔을 것이다.
25. 롯은 겨우 자기만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끝났고,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사명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다.
26.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해 준 것이 그리 크다. 스스로 했을 때는 안 되었으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고 명령 받고 하면 된다.
27. ‘하라’ 했는데도 못하는 사람은 요나같이 뺏길거리며 안 한 것이다. 정상을 벗어나서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 된다.
28. 천사들이 CCTV 카메라처럼 전부 따라다니며 기록을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주관권에서 벗어났다는 통지도 없이 주관권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된다.
29. 관리해서 자기 휴거된 것이 내려오지 않게 해야 된다. 한창 경주하고 뛰는 중에는 조금만 떨어져도 따라잡기 힘들다. 심판받고 이때까지 조건 세운 것이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오기 어렵다.
30. 영계에 가보면 신앙생활을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이하게 깊이 하고 정말로 날며 사는 자들은 혼도, 영도 드레스를 입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보통으로 입고 다니는 정도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듣고 깨닫고 행함이 충만케 해 주시고, 한국을 중심한 온 지구상에 있는 이 복음이 간 곳마다 말씀으로 더욱 깨우쳐 주고 알고 깨닫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말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라, 적어라, 기록하는 자는 복 있다고 해도, 모두 뇌로만 기록하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쓰는 사람들, 전화기 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흐리고, 그리고 거기다 저장만 하지 또 금방 또 그것을 못 봅니다. ‘뇌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단계가 심히 높습니다. 뇌 스마트폰을 근본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스마트 폰도 사용함이 이상적이다 했습니다. 아픈 자, 병든 자, 신앙에 병든 자, 사고에 병든 자, 생각에 병든 자 모두 고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단상을 통해 말씀을 했는데도 갈 길을 가는 자는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축복을 해 주지를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축복을 하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어. 내가 네 입을 통해서 한 말이다. 그러하다.” 했습니다. 성령도 말씀했고 그러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을 때, 그때 나는 심판 받았습시다. “왜 네가 갈 길이 아닌 곳을 가느냐.”하고, 죽음의 선고를 내리는 심판도 받았습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것이며, 신부는 신부는 신부의 길로 가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으로 끝난다 했습니다. “섭리를 이래서 떠났든지 저래서 떠나면 그는 심판이다. 어디가도 되는 꼴이 없다.” 했습니다. 첫째는 물질의 심판, 그다음에 양심의 심판, 세 번째는 애인 주관권을 벗어나는 사망권의 심판, 이런 심판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맞으면 일어나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소돔 땅에서 일어난 자가 없었고 사망권으로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니느웨 성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다시 살아났습시다. 복음을 듣고도 행치 않고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보는 대로 심판치 않고, 듣는 대로 심판치 않고 확인을 한다. 확인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들에게 모두 하나님이 행할 것을 행하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원을 높여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3.16을 그냥 맞지 말고, 자기 차원 높이지 않고 맞는 자는 1년 동안 사랑농사 헛농사 짓는다 했습니다. 사랑농사 열매 맺지 못하고 끝난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다.
2.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하고, 열심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러면 지겹지 않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이루며 살 수 있다.
3.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해야만 만족하게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다. 물질도 아니요, 부귀영화도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근본은 <사랑하는 것>이다.
4. 물질을 벌고 누리려면 힘들기에 물질의 낙은 어렵다. 또한 명예의 낙도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얻기까지 상당히 어렵다. 예술의 낙도 많이 배우고 터득해야 하고, 인정을 받기까지 어렵다.
5. <사랑의 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되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쉬운 세계이면서 최고 첨단의 역사를 이루는 뜻이고, 하나님의 최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6. 하나님은 그 낙으로 온 인류의 표상을 삼고, 온 인류의 소원이 성취 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여도 아깝지 않게 하시고, 온 인류에 그것만이 기쁨과 이상세계가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7. 하나님이 근본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시대 말씀>을 듣는 자들은 꼭 '하나님, 성령님, 주를 사랑함'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8. 이 쉬운 일을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극형'을 받는다. 세상에서의 극형은 '사형수'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은 극형에 처한다.
9. <사랑>이 죽으면 다 죽는다. 세상에서는 사랑이 죽어도 다른 것으로 살아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사랑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잘해도 싫어하신다.
10. <목적>을 못 이루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적>은 '사랑'이다. 그 목적을 이루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뜻을 이룰 수 있다.
11. 교회에 오면 눈물의 바다를 이루면서 기도를 깊이 해야 된다. 기도를 조금 하면 기도 속에 나오는 깊은 말씀을 받지 못한다.
12.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세계에 도달했을 때 신령한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감탄과 기쁨과 사랑으로 그 세계를 접하면서 뇌에 녹화가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금주 기도하는 기간인데 기도를 깊이 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분명 21일 동안 기도하는 기간이다.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의 차원은 높였다. 기도의 차원을 높이지 못하는 자가 너무 많다. 사랑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 이는 기도다. 대화다. 그리고 평소 행하는 일들이다. 아직도 멀었다. 사랑의 세계를 더 배워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계시를 할 것이다. 계시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역사하면 꼭 같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깨닫고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확실한 간구를 하고, 신령한 세계에 이르러 말씀을 들으며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이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을 봐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행실로 해야 해, 행실로. 마음으로는 쉽다. 누구든지. 행실로 보여야 돼요. 뜨겁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강을 띄우며 해야 된다." 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 진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진정한 자에게 신령한 세계를 이루고, 신령한 자에게 신령한 말씀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부지런히 이것저것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도 부지런히 전했고, 부지런히 들었습니다. 기도도 부지런히 하면서, 기도도 전체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무슨 시간? 서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를 안 하면 큰일 난다. 대화가 끊어졌으면 죽었느니라." 하나님과 사랑

의 대화를 이들이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답변을 받으며,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덩어리가 되려면 반드시 사랑의 주인이 돼서 사랑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의 일을 부지런히 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관리하며, 아깝지 않게 투자하며, 열심을 다하며 뛰고 달리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움과 의로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늘 돕고 이끌어 주시니, 이제는 우리를 깨닫고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사고대로 살지 않는 큰 은총을 우리가 덧입어야 될 것이며, 모든 불의한 행실을 하지 않으려면 참아서도 되지만은, 행실부터가 아예 잘라버리고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땅에서부터 이루는 역사가 시작됐으니 이제 우리들은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3.16을 맞으며, 차원을 높이며, 뜻을 펴며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잊지 않고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확실한 은혜가운데 날마다 삶을 살도록 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모든 사망권을 벗어나고 생명권에 속한 자가 되며, 그러므로 사랑의 자녀가 되고, 사랑의 종도 되고 사랑의 신부가 되어서 한 몸이 돼서 늘 살아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늘 부추기시고, 잡으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역력히 깨닫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낙을 삼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섬기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은혜롭게 행함이 합당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해 주시고, 부지런히 죄를 회개하고,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새처럼 날아다니며, 날짐승처럼 날아다니며,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허무주의 삶들이 될 것이며, 고달픈 삶들이 될 것이며, 물질과 멀고, 사랑에도 멀고 예술과도 멀고 모든 세상보다도 뒤떨어진 삶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뻐하며 삶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늘 받으시고 영광을 길이 받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들에게 모두 저마다 손을 대야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행하심대로 행하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사랑을 하고, 육신도 영도 마음도 혼도 그리 행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동산도 주시고, 시대의 하나님의 에덴동산을 주셨으니 이 동산에 행할 것을 행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영원하고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니,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연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는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오니, 날마다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고 말씀의 세력을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이 모두 일체 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감동받고 감화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 각 개인들, 각 가정들, 각 민족들, 시대 복음 받은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이상적인 삶을 살도록 구상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늘 이들이 하나님의 발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발길이 사랑의 발길. 이들 역시 사랑 없이는 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들 사랑 없이는 세상에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삶이 영원토록 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 모든 것들, 애로사항을 기도하였으니, 민족과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것이 어떤 자는 힘들다, 어떤 자는 어렵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천리고, 백리고, 날마다 끊임없이 태양이 뜨듯이, 바닷의 파도가 밀물과 썰물이 정기적으로 일어나듯이 항상 우리에게 여전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는 사랑.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 이끌어 주셨으니 사랑함이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시대의 사랑에 깨어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이들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합니다. 실수 없이 오늘도 행하게 해 주시고, 사고와 해됨 없게 운전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맡긴 일들도 하며 살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고, 온전함을 받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하늘땅을 섬기고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다 지켜 행하게 해 주시고, 늘 행함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해서 껴안고만 살 수가 없습니다. 개성대로 한 체(體) 되어서 사랑함을 말하니,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날마다 이루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고, 미움과 다툼의 세계는 일순간에 없어지고 서로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섭리의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오니 육신도 건강, 영혼도 건강, 마음도 건강, 생각도 건강하고 심정의 사람이 되고 영적 사람이 되어서 시대의 삶을 살게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더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며, 늘 마음으로 성령을 품고 산다고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가니, 모두 이를 깨닫고 보통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스키 탈 때 보통해서 미끄러지면 넘어진다. 발끝에 힘을 줘라. 몸을 스키에 실어라.” 모든 하는 절대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그리 하라 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랑은 동일하다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성의 사랑은 허무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하여라. 영원하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벌써 이와 같이 한 주간도 끝나는 주간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행하라. 고달프지 않게 행하도록 사랑으로 행하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낙으로 삼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게 이들을 축

복합니다. 모두가 그런 삶이 영속하고 영원할지어다! 삼위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민족과 세계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일들을 행함이 낙이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최고의 낙이다.
2. 세상에서 사람이 살 때도 누리는 최고의 낙들이 있다. 만물을 사랑함으로 만물을 통해 최고의 낙을 누리기도 한다. 식물 혹은 동물을 사랑함으로 오는 낙이다. 인간의 낙(樂) 중에 또한 먹고 마시는 낙도 있다.
3. 하나님은 사랑에 핵심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요, 목적이 다. 인간으로서는 ‘사랑’이 가장 큰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4. 사랑은 <시대성의 사랑>이다. 또한 시대성 사랑 중에서도 각종으로 해당되는 사랑들을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뜻’에서 끝난다.
5. ‘이성적인 사랑’은 육신이 행하는 사랑이요, ‘영적인 사랑’은 육신이 행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6. ‘혼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은 육신을 통해서 좌우된다. ‘육신’이 행하는 대로 ‘영’이 반응하여 결과를 이루기 때문이다.
7.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가 실천해야 알고, 주로 말미암아 알고, 주를 사랑함으로 배우며, 성장되어서는 본인이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대하며 배운다.
8. 인류의 사랑 역사는 ‘시대’로 따지고, ‘차원’으로 따진다. 구약의 사랑, 신약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재림 역사의 사랑으로 구분된다. 종급 사랑, 자녀급 사랑, 신부급 사랑이다.
9. 시대성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하는 것이 다르고, 이루는 것이 다르다.
10. <이사야 11장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했다. 시대에 따라 ‘섬기는 낙’의 시대가 있고, ‘사랑하는 낙’의 시대가 있다.
11. 같은 지체라도 엄격히 구분되는 세계의 차이가 많고, 다르다. 시대 역시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도 엄격히 구분이 되나 사람들은 구분을 못 하고 산다.
12.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사람과 같고, 때를 모르는 사람과도 같다.
13. 예수님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때>를 모른다면 <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셨다. “이미 주인이 와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실천하는데 선지자의 말을 더디 깨닫느냐.” 하셨다.
14.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다른 것도 알게 되어 있다. 모든 세계의 이치는 하나만 배우면 다 배우는 것이다. 성서의 흐름도 똑같다. 때만 봐도 그 세계를 다 안다.
15. <때>로 봐도 이 시대는 메시아가 와서 활동하는 시대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 행하는 자들만 알고 누리지,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른다.
16. 시대를 모른다는 것은 ‘잠잔다’는 것이다. 잠을 자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것이다. 잠을 깨우고 가르치고 본인들도 실천케 해야 그때서야 알게 된다.

17. 기독교인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때가 지나갔어도 자기 때에서만 어려움을 겪으며, 힘겹게 눈물겹게 그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때가 신약역사를 지나 성약역사까지 왔는데도 아예 모른 채 지금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

18.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아는 시대에서 역사를 하신다. 모르는 구시대에서 역사를 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신약역사 속에서 성약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9. 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기존 공장은 기존대로 계속 가동시키며 이익을 얻고, 또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물건을 생산해서 이익을 얻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역사를 계속 펴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역사를 펴신다.

20.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안 온다고 속을 썩히지 않으시고, 그들이 와서 성약역사를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으신다. 그 관념과 사고와 행실이기 때문이다.

21.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회사를 경영하고, 흑자를 보고, 많은 이익을 남기며 많이 받으면서 간다. 구시대에는 이미 늙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22. 기성에서 섭리사로 부모님들이 와도 좋아하는 하지만 일을 하지는 못 한다. 창조목적은 다시 이룰 수도 없고, 예전에 편 역사를 다시 펴 수도 없다.

23. 옛 것은, 끝난 것은 끝난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자꾸 가야 된다.

24. 전성기 때 한창 될 때는 기독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성기' 시대였다. 그래서 기성이 오기를 그렇게 애간장 태웠다. 그때는 '올 만한 역사'였다. 지금은 이미 40년의 역사가 가고, 다 펴고 끝나버렸다.

25. 하나님의 자연성전도 이미 15년, 20년 전에 만들었고, 그 나머지도 5~6년 전에 다 쌓고 끝났다. 3.16 휴거 기념관도 결혼할 때 예식장으로 쓰고 끝난 곳이다.

26. 이미 오전의 것은 다 끝났고, 새로운 오후의 것이 남았다. 이제는 부활기 역사다. 결혼해서 산지가 이미 옛날이다.

27. 근본 휴거 역사는 이미 처음에 끝났다. 두 번, 세 번이 없다. 다만 그 뒤를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휴거가 되어 나간다. 합동결혼식은 벌써 끝나고 그 후에 한 명씩, 두 명씩 결혼식 하는 입장이다.

28. 역사도,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때 참석하지 못하면 끝난 것이다. 지금은 운명이 달라져서 섭리사 안에 있어도 자기 위치에서 사는 것이다.

29. 최고의 마지막 기회는 감옥에 있으면서 70만 통의 많은 편지를 할 때였다. <주>를 '편지'로 사귀어야 했다. '편지'가 <주>였다. 이제는 살아나는 기간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30. 인물도, 청춘도 한 때다. 그때 꽃이 폼을 때, 별을 맞이했어야 한다.

31. 시대가 가면 시대의 주인도 이미 시계처럼 돌아가 있어서 그 전에 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다.

32. 시대의 역사는 그때 따라갔어야 한다. 예수님 때도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순간 한 때였다. 작으나 크나 환난 핍박 어려움이 있던 그때 따라간 사람들이 역사를 폈다.

33. 섭리사도 환난기 때, 어려울 때 확 붙잡고 역사를 폈다. 그때 그럭저럭 한 사람들은 그럭저럭으로 끝났다.

34. 전성기 때 하나님께서 경제도 축복해 주시고, 역사를 펴게 하셨다. 이제 오는 사람들은 부활기 역사에 꽃을 피우고 가는 입장이다. 이미 전반기 후반기는 다 끝났다.
35. 역사를 펼 때, 순간순간 때에 따라 뛰는 것이다. 선생은 환난기 때에도 행할 것을 행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할 일을 다 하고, 담대하게 잘했다.
36. 무조건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연애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의 집에 가서 아무리 일을 해 줘도 소용이 없다. 둘이서 사랑의 관계를 서로 이루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핵>이다.
37. 독일에 있을 때 4~5억 만개의 수석을 보고 그 안에서 수석을 주워왔다. 그때는 일하고 지치고, 또 때가 추운 때라 너무 추워서 덜덜 떨며 여건이 아주 불리했다. 그러나 그때가 ‘그 골짜기에서 수석을 줍는 전성기’였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이 지나갔다.
38. <전성기> 때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두려움 등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때가 최고 좋은 때다. 기독교는 40년 전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성기였다. 기독교도 전성기는 옛날에 지나갔다.
39. 40년을 두고 20년 동안 전성기 역사를 폈다. 그때 이미 지나간 것이다. 조은 목사는 최고 환난의 전성기 때 왔다. 그때 와서 최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컸다.
40. 농부가 씨를 뿌리면 한창 곡식이 커야 가라지도 생긴다.
41. 후반기에 온 사람들은 싸움을 잘한다. 환난기 때 적들이 일어나고, 가라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반대하니 치고 박고 싸우면서 닭싸움하듯이 싸워서 이겼다.
42. 주는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긴다. 이긴 것을 보고 메시아인지를 알 수 있다. 메시아가 지면 구원을 못 시킨다. 예수님은 죽어서도 승리했다.
43. 사랑에 대해서 시원찮으면 다 시원찮다. 사랑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자기 때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야 된다.
44. 환난기 때 조은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웃어가면서 싸우고 이겼다. 선생도 늘 웃어가면서 설교하고 시대를 누벼왔기에 뿌리 깊은 나무로 큰 역사가 일어났다.
45. <전성기>는 세 번 있다. ‘1999년까지의 전성기’와 후반기 20년 동안 ‘환난기의 전성기’가 있다. 이때 신앙이 태어난 사람은 환난으로 인해서 싸움을 잘 한다. 그리고 마지막 ‘주와 같이 뛰는 부활기’다.
46. 한 때 주가 외국으로 갔을 때는 한국은 환난기였으나 외국은 환난기가 아니었다. 주가 있으면 같이 전성기를 펴고, 주가 없으면 환난기로 간다.
47. 이제 부활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 아직 부활기 전성기는 아니다. 이제 씨 뿌리는 세계다. 그러나 본래 있던 것을 가지고 하니 크고, 새로우니 제일 크게 역사가 간다.
48. 지금은 부활기가 돼서 살아난 자들이 되었다. 부활된 자들은 척척 할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살아났으니 세상의 죽은 자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대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줘서 이끌어 오는 역사를 펴라.
49. <부활기>는 주가 살아있을 때까지다. 주는 건강하게 잘해서 시대를 끌고 나간다.
50. 1999년까지 20년, 그리고 2015년 3월 16일에 휴거를 이루고, 2018년까지 20년 해서 40년을 했다. 2018년부터

20년 더 가면 60년이 끝난다.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고, 안식년을 맞게 된다.

51. 2015년 3월 16일, 시대 사명자가 나고 70년 되던 때에 ‘휴거 역사’가 일어났고, 공적 역사를 펴고서 60년이 되었을 때는 ‘혼이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행방 없는 사랑이 아니라 이런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면서 가니, 오늘도 좋은 역사의 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늘 삶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에 최고의 역사라고 했으니, 그리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대 따라 전성기가 가는 것이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전성기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대에서 이 시대까지 살아오는 자들은 계속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역시 역사의 황혼기에도 역사를 펴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전성기를 맞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구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1999년까지 20년 뛰고, 그 다음에 2015년 3월 16일에 휴거를 이루고 2018년도까지 20년 또 뛰고, 그 다음에 20년을 또 뛰어서 한다면 60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의 역사가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줬으니, 부지런히 오늘도 자기 때에 해당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역사를 뛰고 달리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낙을 삼고, 성령님 사랑하는 것을 낙을 삼으라. 그리고 땅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것을 낙을 삼으라. 그래야 너희의 목적도, 꿈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지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뜻도 이룬다. 시대를 볼 때 지금이 그러한 때니라.

2.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지금 하라. 안 하는 죽은 자요, 하는 자는 산 자니라.

3. 이성의 사랑은 보이는 사람끼리 하니 사랑의 세계는 교육도, 가르침도 필요 없으나 신의 세계의 사랑은 다르니 가르쳐 주신다.

4. 성령은 “내가 늘 네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믿어라. 너희들 각자 옆에 있다. 말 안 하면 멀리 멀어지고, 말 하면 가까워진다. 너희들이 상태를 깨닫고 알아라.” 하셨다.

5. 지금은 <신부 시대>라 옆에 산다. 가정에서도 결혼하고부터는 같이 사는 삶이 아니냐. 그러나 같이 살아도 멀어진 삶이 있고, 가까운 삶이 있다.

6. 옆에 있으면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함으로 사랑이 통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 대화를 안 하면 옆에 있어도 멀어진다.

7. 대화를 하라. 대화로 인해서 사랑의 낙을 삼을 수 있다. 조금만 떨어져도 대화가 안 된다.

8. 선생이 중국에 있을 때 전화카드가 천장 하나 반을 넘을 정도로 늘 통화를 했다. 그만큼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역사를 펴 왔다. 대화가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대화를 해 준 것이다.

9. 사람들이 지금 옆에 성령이 살고 있어도 대화를 안 한다. 대화를 안 하니 성령께서 그에게 철수하셨다. 그러니 지금부터 대화를 해서 가까이 하는 역사를 펴라.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간다.

10. 병 고치는 능력, 말하는 능력, 설교하는 능력, 순간순간 하는 능력,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 등 주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알아라.

11. <주>는 <성령>이 늘 옆에 계신 것을 알고 대화하니,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12. 사랑은 대화로 이루어진다. 대화를 하라. 아무리 옆에 살아도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지는 사랑이다.
13. 대화로 화목하게 되고, 대화로 국가 간의 문제도 풀어진다. 의견이 달라도 계속 대화를 하면 가능하다. 대화가 끊어지면 냉전시대가 된다.
14. 말을 안 들으면 대화를 안 한다. 그런데 사랑하면 자꾸 대화를 한다. 어떤 화병에 걸려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대화하면 금방 일어난다. 모든 각종각색의 세계는 대화로 풀어진다.
15.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를 하라. 사랑의 낙을 삼으려면 대화를 하라.
16.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가깝다. 옆에 있는 것은 상관없다. 천리에 있어도 대화를 하는 자가 가깝다.
17. 선생이 산에 가서 20년 동안 한 일은? 대화한 것이 제일 크다. 대화로 성서의 모든 비밀을 풀고, 메시아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내려왔다.
18.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평소에 대화하고, 기도 후에도 대화했다. 처음에는 만물로 대화하다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게 되었다.
19. 구약은 '만물' 통해 대화했다. 물질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신약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대화했다. 그 전에는 대화가 안 통했다. 지금도 '주'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된다.
20. 지금 주와 대화가 끊어진 사람은 그만큼 멀리 있는 것이다. 지금은 주가 찾는 시간이 아니다. 자기가 찾는 시간이다.
21. 대화가 먼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22. 주는 섭리 전체를 살리려고 새벽대화, 말씀대화, 수요대화, 주일대화의 작전을 펼쳤다. 그 주관권에도 제대로 못 들어온 사람은 그것마저 끊어진 것이다.
23. 옥에 있을 때 증거자와 대화를 제일 많이 했다. 한 번의 편지에 15장씩 받으며 대화를 하고, 10년간 350번의 면회를 하며 대화했다. 그런 대화가 항상 이뤄져야 짝 짝 컸다.
24. 구시대에는 대화가 없다. 신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의 대화가 계속 일어나고, 구약에서는 대화가 끊어졌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대화가 옮겨오니 구시대에서는 끊어진다.
25. 예수님이 공적으로 하신 말씀보다 제자들과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더 깊었다. 선생은 그것을 15세에 이미 찾아냈다.
26. 대화는 '계시'다.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대화의 계시를 받은 자는 '선지자'가 되었다. 가장 많은 대화를 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다.
27. 알고 웃고, 알고 춤을 추고, 알고 가라.
28. 지금은 성령의 영체 본체가 이 세상에 와 있다. 우리의 영은 지금 휴거되어 본체는 하늘나라에 가 있고, 혼체는 땅에 와 있듯이 휴거 이후로 성령의 본체가 직접 와 있다.
29. 본체가 왔어도 본체만체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 해서는 영이 빛나고 발광체가 나는 영은 못 된다.
30. 성령과 대화를 하는 자를 주도 가까이 대해 준다.

31. 사랑으로 휴거된다. 대화해야 사랑이 불붙는다. 아무리 결혼하고 이성 관계를 매일 한다고 해도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
32. 대화하고, 얘기하고 풀어라. 대화하는 자에게는 ‘곱하기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33. 신앙생활 하면서 ‘더하기’가 있고, ‘뺀’ 때가 있다. 잘못하면 뺀다. 신앙에 감점이 있을 때 계속 빠진다. ‘곱하기’는 사랑이다. 사랑의 원본은 대화로 이루게 된다.
34. 연애할 때 대화가 끊어지고 연애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짝사랑은 대화가 없다. 대화가 안 되니 깨지는 것이다. 대화가 끊어지면 주 앞에 죽은 신앙이다. 그러면 감점 신앙에 들어간다.
35. 선생은 40일 금식하고서 끝나는 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궁금한 것 하나 가르쳐 주셨다.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해서 계속 받는 것이다.
36. 대화하는 자는 신이 된다. 아는 자가 신이다.
37. 대화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도 빼냈다. 하나님께 “인간의 육을 참으로 신비하게 만들어 뒀다.” 고 말씀드리니 하나님은 “영보다 육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하셨다.
38. <영>은 워낙 강한 세계라 강철로 힘줄을 만들어놓은 격이다. 그러나 <육>은 가는 실같이, 머리카락같이 만드니 잘못해서 끊어지면 끝난다. 육신은 약해서 잘못하면 죽어버리니 그만큼 육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39. 늘 성령과 일체 되라. 자기 몸이 성령의 몸이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살아라. 늘 대화하라.
40. 대화로 끈끈이를 삼는다. 끈끈이가 딱 들러붙어야지, 안 붙으면 바로 집어던진다. 붙임성이 있어야 된다.
41. 대화가 크고 크다. 대화를 안 하면 안 된다. 수시로 매일 대화하고, 매일 얘기가 통해야 된다. 대화 없는데 큰 사람은 없다. 사랑 감점이 빠기와 빠기다.
42. 대화하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늘 사랑의 대화를 한다. 애인이니 어떤 것을 해도 사랑의 대화를 한다.
43. 주일말씀은 ‘사랑의 낙’, 오메가 토요말씀은 ‘대화의 낙’이다. 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 역사가 일어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낙을 삼으라. 육신의 세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할 것. 성령사랑, 성자사랑, 주를 사랑!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다. 대화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대화 한 것은 확신 해.” 이를 통해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캠퍼스도 자주 모여라, 자주 만나라.” 하여 전국을 돌면서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계속 만나 주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은, 여기 끈끈이가 붙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원가지에 붙듯이 붙는 일이다.” 했습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심을 감당하고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는 들어도 행동치 못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희망의 길을 끊는 것이다.” 했습니다. 믿고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아픈 자 연약한 자들에게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구가 공전 자전하며 돌듯이 주와 더불어 함께 행하게 해 주시고, 이미 시대가 지나가면 그 사람과 대화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때를 놓쳐서. 때 놓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러 간다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라.

2. <말씀>은 시험문제를 불러주는 격이고, 답안지를 불러주는 격이다. 말씀이 선포되면 바로 행할 것이 있다.
3. 하나님은 쏘개서 행하시고, 구분해서 행하신다.
4.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까지도 뜻을 두고 행하신다.
5. 작은 것도 하나님의 큰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뜻을 두고 행하신다.
6. 하나님은 마음에 어떤 계획을 두고 행하신다.
7.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행하여라.
8. (하나님) 지금 너희는 주의 신부가 되고, 나 여호와 하나님, 성령, 성자의 신부가 되었으니 하는 일마다 모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느니라.
9. 그냥 놔뒀으면 영원히 지옥 가서 살 우리를 영원히 황금천국에 가서 살게 하셨으니, 온종일 모두가 감사하면서 삼위를, 주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0. 너희가 소원대로 잘 되지 않았냐.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휴거되었으면 큰 것은 해결한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돕고 함께하여서 그리 되었다. 이를 매일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1. 건강하게 해 줬으니,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께 항상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2.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희를 도우신다. '현실'을 감사하며 기쁘게 사랑하며 살아라.
13. 하나님은 엄청난 존재자이신 성령님을 시켜서 도와주라고 하신다. 그런데도 때를 못 지키고, 못 기다리고, 불만 불평하면 안 된다.
14. 인생은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 것이 그리도 많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인생이 정말로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라.
15. 현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16. 하나님은 '한계'를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한계를 두지 않았으면 육신 자체가 영원히 사는 지상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17. 사람의 <생각>에도 '한계'가 있다. 똑같은 것을 두고도 감사하면 감사가 되고, 불만하면 불만이 되고, 감사치 않으면 감사치 않은 것이 되어 버린다.
18. <판단>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생각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생각을 잘하고 하라.
19. 사사건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20. 불가능한 것을 해 주신 것을 진정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21. 새벽예배 때 예배도 나오고, 말씀을 듣도록 새벽을 깨워주시는 성령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22. 전도한 생명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나오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와주셔서 꼭 감사하다고 하라.

23. 성령과 하나님과 성자와 주와 더불어 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를 사랑하라.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자기와 함께하심을 항상 좋아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24. 지금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실제 존재를 <주>로 보이며 나타나는 시대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라.

25. 하나님과 성령은 <메시아>를 통해 최고로 많이 나타나신다. 실제로 보는 시대는 ‘지금’ 밖에 없다.

26. <성령과 주와 함께하는 삶>을 하여라. <함께 사는 생활>을 하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오늘도 말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것을 다 전해 줬고. 이지가지 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6시가 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이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하나님이 남은 시간도 필요한 대로 쓰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여기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섬리 나라들에 충만하고 사고와 해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반대하거나 막는 자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하니, 하나님이 친히 그 입을 막으시고, 그 행실을 막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삼위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께 감사하라.

2. <감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알지, 생각을 안 하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안다.

3.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지구를 일생동안 쓰게 되었으니 평생 감사해야 한다. 부모가 자기에게 쓰던 집을 주고 갔으면 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감사해야 한다.

4.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을 믿고 안다면, 쓰는 것마다 감사해야 된다.

5.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죽을 곳에서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1년도 못 가서 다 죽고, 지구가 비어서 빈 지구가 된다.

6. 죽음을 피했던 과거 일들이 너무 많으나 사람은 신이 아니라 육신이기에 다 알지 못한다.

7. 인간의 ‘육신’을 창조하기가 ‘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웠다. 어린아이는 지능이 낮아서 고통 받을 것이 많고 죽음을 당할 것이 많듯이, 육신은 영보다 지능이 낮으니 더 죽을 고비가 많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늘 눈을 까막까막할 정도까지도 살피시고, 숨이 떨어져도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하셔서 살리신다.

9. 어렸을 때는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살려준 것을 모른다. 커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죽음에서 살려 주는 것도 잘 모른다.

10.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신다. 본인이 죽을 때까지 깨닫기 전에는 모른다.

11.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죽음의 세계를 면하게 한 것만 봐도 수십, 수백 번이다. 한 가지만 봐도 평생 하나님께 매일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12. 우리는 ‘육신’도 있고 ‘영’도 ‘혼’도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도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13. <영>이 사망권에 가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경지에 있었고, <훈>이 사망권에 가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너무 많으니까 모른다.

14. 지구상에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 주셔서 현재 살아있는 것이다.

15.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살려 준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막연히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의 귀신들이 살려 줬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숭배자 주인이 살려 줬다고 생각하는 정도다.

16. 하나님이 <생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 준 것을 늘 감사하라.

17. 죽으면 끝났다. 하나님이 살피지 않았으면 끝났고, 하나님이 생명 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18. 하나님이 없었으면 허허벌판에서 사는 입장같이 태어난 보람도 없고, 죽으면 흑암에 유리하는 영이 될 것인데, 하나님이 있어서 생명권으로 살게 된 것이다.

19. 섭리사는 40년 동안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 역사의 신부들이 그렇게도 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생명을 생각하시는 것을 깨달아라.

20.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행하게 하여서 생명을 이같이 지켜 주셨다.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늘 생각할 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21. 하나님은 '생명의 탄생, 죽을 자가 살아나는 날'에 그만큼 능력과 권세를 부리신다. 또한 사고 날 사람들을 미리 이리저리 돌리시고 행하신다.

22.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나 일생동안 십만 번이든 백만 번이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억해 주신다.

23. 한 번에 다 못 하니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것도 그날그날 사건마다 해야지, 지난 다음에는 금방 잊어버리고 모른다.

24. 어느 나라 누구든지 매일 하나님께 자기에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모르면 감사할 것이 없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없는 말씀, 오늘 전하다가 여기에서 마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가심을 감사하고, 시대에 태어난 자들이 감사하고 늘 감격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빌립은 주를 봐서 감사하다고,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이 연속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사랑의 축복을 주시고 휴거의 축복을 주시고, 시대에 태어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물질과 각종 각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족과 세계를 늘 도우시고 살피시고 불꽃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옵니다. 많은 생명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오니 보내 주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상 없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에 주를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시대의 하와가 나게 해 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길러 주셔서 주를 증거하게 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조건의 대상 세계가 이루어졌고 영광과 이상의 세계가 일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를 두고두고 생각해 봐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많으니, 우리로 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오늘도 차를 타고 오는데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하심을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지켜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꿈에 보니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 발통이 열차 발통이었습니다. 쇠로 된 것, 그놈을 내가 타고 가는 것을 봤는데, 나와 부딪히는 자전거마다 다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것은 이상하니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일어난 것이 낮에 일어났습니다. 내 자전거와 부딪혔는데 다른 자전거들은 다 절단 났는데 내 것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보인대로 나에게 그렇게 튼튼한 역사로, 능력으로 함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는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각양각색 수만 가지가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행하는 일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3.16 하나님 역사의 귀한 날에 시험들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날씨도 이상 되게 해 주시고, 모임도 이상적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가운데 제대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때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두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미세먼지의 고통을 받는데, 비가 와서 전부 땅에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람만 불면 날아오는데 바람이 불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니, 하나님께서 친히 잘못되게 행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기뻐하는 모든 자들로서 한 덩어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는 일이 잘되고 형통되고 이상이 없는 데가 될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궁에 들어가 하나님 문에 들어가 감사하며, 생명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삼위의 이름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라.
2. 지난날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늘 감사하라.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고도 많았다.
3. 특히 ‘죽음에서 살려준 것’이 참 크다. 죽어버렸으면 끝났을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씩 살려주셨다.
4. 현실에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드리며 전심을 다하라.
5. 저마다 지난날들을 다 기억을 못 한다. 하도 많아서, 또 오래되어서, 그리고 사람은 하루만 가도 잊어서도 그러하다. 더구나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라 모르기도 하고, 신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하지 않으니 모르고, 또 깊고 깊어서 모르고, 하나님이 해 주셨어도 말을 안 하시고 말없이 가시니 모른다.
6. 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구원을 시켜준 것에 감사하고, 현실에 사망 길에 벗어나서 생명길로 가는 것을 감사하고 살아라.
7. 행하는 만큼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 행하지 않으면 죽어있으니 생각이 안 난다.
8.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보고 한 신부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눈물바다를 이루며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 비행기에 탑승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3.16 행사에 참석하려고 연기했었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그 비행기를 만들 때부터 언제 떨어지는지 날짜와 시간까지 다 아셨다. 시대 신부였기에 빼내 주셨다. 미리 사는 코스로 가게 해 주셨다.
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누구를 살리려면 아주 예전부터 준비를 하며 역사를 돌리신다. 하루아침에 순간 하는 것이 아니다.
10. 하나님도 미리부터 하시고 성령님도 미리부터 하신다. 우리도 항상 미리부터 해야 한다.
11. 사고 날 지점에서 느낌이 오면 미리부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서 쉬게 된다. 120km를 달리다가 한 번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집어져서 사고가 난다.
12. 하나님께서 죽을 곳에서 살려 주신 것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그 면에 잠들어서, 죽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다.
13.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말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해 주셨다.
14.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더 이상적으로,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더 사랑스럽게 만들고, 더 말씀을 전

하는 위대한 입으로 만들고, 증거의 입으로 만들고, 더 순종하고 더 주와 같이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보낸 자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더욱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지가치 축복하고, 잘되게 축복하였사오니 모두 뛰고 달리고 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고 또 돌리옵나이다. 저마다 하나하나 감사할 것이 다 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꼭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께 감사하라, 주께도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나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늘 그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육을 은혜롭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과 성령과 주님께 감사하라.
2. 과거에 감사하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라.
3. 특히 ‘생명을 살려 주신 것’에 감사하라. 생명을 살려 주신 것이 그렇게도 크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 생명을 살려 주시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세계다.
4. 자신에게 행해 주신 것은 자신이 감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니 해 줄 수 없다.
5. 본인이 겪은 것을 바로 즉시 감사하라. 근본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께도 주께도 감사하고, 해당되는 자에게도 감사하라.
6. 하나님은 사람을 쓰고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니, 사람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이끌림도 받는다.
7. 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도 많고, 형제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도 많지만, <근본자>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이것으로 신앙의 근본을 보고 살아라.
8.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근본자>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시다. 또한 대상이 있다면 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을 받게 된다. - 이 ‘공식’과 ‘기본’을 꼭 외워라.
9. 자기에게 행해 주신 것을 자신이 감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감사할 수 없다. 자기의 것은 자기가 감사하는 것이 ‘공식’이다.
10. 기준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개성으로 전달되는 말씀이다. 이것도 ‘공식’이다.
11. 항상 공식을 알면 그 센터 전체를 안다.
12. 시대 복직 하와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책을 쓴다 해도 다 못 쓸 정도다. 첫째, 환난기 때 말씀을 전해 주는 일을 했고, 또한 평화로운 역사여도 잘 안 웃어지는데 복직 하와로 인해 극적인 환난기에서도 웃으며 설교할 수 있었다. 둘째, 잡히면 죽인다고 하고 쫓아다니던 자들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선생을 찾아서 말씀을 기록했다. 셋째, 영상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화면 처리를 잘 하였다. 넷째, 시대 하와의 사명을 받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거센 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지켰다.
13. <주>는 ‘기둥’이요, <따르는 사람들>은 ‘기둥 밑에 있는 주춧돌’이 된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따르는 자들을 흔들리게 한다.
14. <절대 흔들리지 않는 법칙>은 절대 믿고, 절대 행하고, 절대 증거 하는 것이다.

15. <상대성 세계>에서 ‘절대자’ 하나가 있어야 한다. 절대자 앞에 절대 대상자의 말을 절대 믿고 일체 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
16. 아브라함 하나가 조건을 세우니 그로 말미암아 그 주관권에 있는 자들이 모두 산 자 취급을 받았다.
17. 주를 믿는다고 해도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운 자>를 통해서만 일체 되어야 한다. 가인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한 아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한다.
18. 기준을 세운 자를 통해서 올라간다. 이것도 ‘공식’이다.
19. 환난 때 증거자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어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고, 고통을 안 받았다.
20.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권투할 때 얻어맞듯이 사탄 마귀에게 사정없이 얻어맞고 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다시금 십자가를 져주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또 일어났다.
21. 다섯 째, 부흥 집회에서 수만 명이 다 은혜를 받게 전해 주었다.
22.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여 살려놓고, 사망권에 있는 생명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큰일’이다.
23.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자에게도, 살려 주는 심부름을 해 주는 자에게도 감사하고, 살려 준 자도 감사하고, 살리심을 받은 자도 감사해야 된다.
24. <3.16>을 놓고 ‘차원 높은 휴거’를 해야 한다. 가장 빠른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25. 정신 바짝 차리고 모순 된 것은 죽어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양 떨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26. 하나님이 세운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을 세운 자’를 중심으로, 그와 일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적인 비밀>이다.
27. 대표가 조건을 세우면 전체가 믿음의 조건을 세웠다고 인정을 해 준다. <절대 믿음의 조건>, <절대 행실의 조건>을 세우면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28. 아브라함이 <절대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때 조건 세우고 2천년 만에 메시아가 왔다.
29. 이 시대도 시대 사명자가 성경대로 십일 동안 환난을 겪고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끝나고, 10달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믿음의 조건>을 세우면 하늘은 더 크게 본다.
30.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면 그 누구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밀려나버린다.
31. ‘자기 능력과 권세’를 써먹어야 기쁘다. 하나님도 그 보낸 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상대자들을 통해서 능력과 세력과 사랑을 써먹을 때 그렇게도 기뻐하신다.
32. 자기 실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렇게도 사랑하고 좋아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일을 행한 사람들, 감사하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모든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함께하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행사로 인해서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공중으로 날아옵니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서 모두 있게 하시고, 모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다 보살

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차 한 대 한 대가 장난감 같고, 마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차를 잡아 당기듯이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모두 믿음과 실제 조건을 꼭 세워서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도 역사하고, 흔들림 없게 해 주시고, 사탄도 흑암도 다 물리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믿음의 조건과 행실의 조건을 모두 굳건히 행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조건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행실의 조건 자가 되게 기도합니다. 잘 되고 형통되며 삼위의 발판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믿음의 조건과 실제 조건을 세워서 흔들림 없게 해 주셔서,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주로 인해서 하고 싶은 일을 실행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게 축복 해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행한 것은 자기가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겪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자기가 겪은 것은 자기가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함이 충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3.16 큰 행사에 은혜를 주시고, 3.16에 어떤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손대게 하고, 뜻이 아니면 감히 손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으니,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고 행하오니, 누가 그런 일을 감히 하지 못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다면 그들은 행한 대로 10배, 20배, 30배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삶> 자체를 감사하라.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라.
2. ‘어려움과 고생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지금 죽는 것’과 ‘어려움과 고생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사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사는 것’을 택하여라.
3.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종 고생도 오고, 고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눈물겨운 일도 생기고, 아픈 것도 생기고, 실패도 겪게 되고, 몸부림도 치는 역경도 당하게 된다.
4.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각종 어려움을 당한 것도 감사하라. 결국은 더 좋게 되느니라.
5. 어떤 사람은 고생하느니 죽어버린다면 죽기도 한다. 죽으면 앞으로 살면서 겪을 좋은 날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 바꿀만한 고통은 아니다.
6. 각종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라. 다 뜻이 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진대 어려움이 닥쳤지만 결국은 더 좋아졌다.
7. 월남 전쟁터에서 적이 총을 쏘는 죽음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나도 살고 적도 살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순종과, 원수 사랑의 도를 깨닫게 되었다. 이를 나의 신앙의 지침으로 삼게 되었다.
8. 어떤 사람은 사고로 다치고 고생했지만, 그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생할 것을 육신이 다치고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천국을 가게 되었다.
9. 고생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환난 중에 기뻐하라. 어려움 중에 감사하라. 사랑하라.
10. 고통을 받아도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혹은 고통을 안 받고 소원이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11. 어려운 고통과 환난을 받으며 사느니, 고통과 환난을 안 받고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느냐.
12. 섭리의 지난날 모든 역사를 볼 때 고생돼도 생명 길로 온 역사였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을 생각할 때 고생돼도 생명 길로 온 것이 훨씬 잘한 것이다.

13. 모르는 것이 약이 된 것도 있느니라.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면서 보냅니다. 내일 것도 오늘 것도 다 설교를 해 주고 엄청난 내용을 주었으니, 이를 중심해서 기도하고 깨닫고 고마워하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 모든 사연들 생각해 봐라. 다 뜻이 있어서 그런 사연들이 오고 갔으니 잘 깨닫고 행하도록 하고, 잘하도록 하라. 나 여호와께서 행한 일이고 성령이 행한 일들도 있으니, 그걸 깨닫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고생돼도 생명 길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성령께서 내가 극적인 세계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생각하며 고생돼도 생명 길로 가며 고맙게 생각하라 했으니, 섭리사 모두 투덜대지 말고 감사하며 가라고 했습니다. 다 뜻이 있고 해놓고 보면 역사에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죽음을 피한 것도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고생을 한 것도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훗날에 많은 간증거리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잘되고 형통할지이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겪어도 고생돼도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고생돼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을 원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난을 당할 때도 TV에 나오고, 누가 씹어댈지라도 고생돼도 생명 길을 가라. 어떤 것이 있어도 그리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하고, 날씨가 나빠도 고생돼도 하나님을 만나라. 고생 돼도 연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습니다. 온전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길 원하고, 오늘 비가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모두 중지되게 해 주시고, 비야 멈춰라! 하나님, 내일 하나님을 만나는 행사가 있으니 모두 멈추고 태양 뽕뽕 불어서 나머지 것을 우리가 해결하겠으니,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주시고 은혜를 배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리함을 받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라면 내리겠지만, 뜻이 아니라면, 기도의 책임이라면 기도하오니 섭리사 전체가 기도하오니 오늘도 비가 오는 날씨니 비 오지 못하게 기도하오니 하늘을 잡아 비 오지 못하게 해 주시고 말갈게 해 주시고 뽕뽕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였으니 정녕코 이뤄지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오늘 날씨를 주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면 물이 피가 되고 피가 물이 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배풀어 주시옵소서. 만일에 큰 뜻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뜻이 없다면 모두 막사오니, 은혜를 배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은총을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가 40년 동안 해 오듯이 해 주시고, 바닷물을 멈추게 해 주셨듯이 밀물 멈추게 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개인도 민족도 가정도 모두 환난과 극심함을 당할 자도 굳건함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반응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바로 책망하셨다.
2.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3.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도 사랑에 반응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대꾸가 없느냐.
4. ‘반응이 없는 것’은 책망 받고 혼날 일이다. 고로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5.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하는 자들은 반응이 없다.
6. 하나님은 3.16날에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엄히 책망하셨다. 성경에서 책망을 들은 것은 ‘옛날에 말한 글’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책망하셨다.
7. 성경에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임금이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 하니, 대답을 안 했다. 고로 임금은 유구무언으로 반응이 없는 자를 내쫓았다.
8. ‘거짓말을 하는 자’는 성 밖에 내쫓으리라. 성약역사는 하나님과 메시아와 성령과 함께 만든 세계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자기가 만든 세계이니 쫓아내는 것이다.
9. 신약역사는 예수님이 만든 세계다.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내쫓아버렸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는다.’는 것은 그 주관권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이다.

10. 기계가 코드를 쫓아도 소리가 안 나오고 반응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11. <반응이 없는 자>는 죽은 자요, 반대하는 자요, 반항하는 자다.

12.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경고하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된다. 둔한 사람들,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메시아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반응을 자기 식으로 보인다.

13.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만큼 채워야 반응한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이다.

14. 지금은 <자기만족 시대>다. 자기만족을 채워 주지 않으면 안 해 준다.

15.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야지, ‘내 만족’을 채워서 안 된다. 전능자의 만족을 채워야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16.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도 인간이 반응을 안 보이면 하나님은 그냥 두고 지나가신다. 그때는 인생이 한 세상 살다가 수한 전에 죽든지 고통을 받든지 신경 쓰지 않으신다.

17.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해 주고, 말씀과 사랑을 대변해 주면 하나님은 인간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하게 생각하신다.

1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했는데도 안 듣고 반응을 안 보이고 유구무언이면 그냥 지나가시고,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

19. 산에서 산불이 나고 뒤에는 사냥꾼들이 잔뜩 오고 있는데, 깨워도 잠을 자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산 짐승들은 ‘죽었구나.’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응을 보일 때는 ‘살았구나.’ 하고 그대로 함께한다.

20. 선생이 어렸을 때에 죽어서 묻으려다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훌리불을 열었을 때 눈을 까막까막 반응을 보이니 안 묻고 살게 된 것이다.

21. 반응을 안 보이면 ‘죽은 세계’로 보고 처리한다. 반응을 안 보이면 하나님은 노발대발 하신다.

22. 휴거 차원의 핵심은 <반응>이었다. 하나님은 반응을 보이는 대로 해 주고 가셨다. 반응을 못 보여 준 사람은 차원을 높이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다.

23. 기독교는 시대 사명자가 와서 40년 동안 외쳤으나 반응을 안 보였다. 다 끝난 다음에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만 번, 수십만 번, 수천만 번 해도 헛일이다.

24.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느냐. 왜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부를 때 가까이 하라.” 하셨다.

25. 전 세계 섭리의 교회마다 반응하는 것을 보고 대해 준다. 그러나 일순간의 반응을 보고는 속지를 앓는다.

26. 노아 때도 반응이 없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소돔 땅도 롯을 보내어 말씀을 전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겨우 롯의 식구들만 신앙유지를 했다.

27. 롯이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이 많아졌으면 불이 붙어서 열렬했을 것인데, 겨우 그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돼서 심판을 면치 못했다.

28. ‘육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문제다. 육신이 살 때 영혼을 구원시키고 만들어야 했는데, 못 만들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영들이 못 살고 사망으로 갔다.
29. 그때 멸망 받은 영들은 영의 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 때 기회가 있었다. 메시아 예수님이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주었다. 그러나 복음을 놓고 육신도 불신하는데 영혼이 얼마나 시인하고 좇아왔겠느냐.
30. 신앙을 볼 때 ‘과거’를 본다. 그런데 본인도 과거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려서 잘 모른다. 그러니 주는 ‘영적’으로 꿰뚫어 본다.
31. 사과나무에 ‘어떤 퇴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 맛’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육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혼’도 그렇게 크다.
32.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33. 자기의 생각으로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세계에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아니니라. 죽도록 했어도 ‘기술’이 자기 한계밖에 안 돼서 못 했다.
34. 자기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지 말고, 더 만들고 연단하고, 더 선수가 되고, 더 유능한 자가 되고, 더 배운 다음에 ‘프로’가 되어 해라.
35.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수준’이 낮아서이고, ‘기술’이 없어서이다.
36. 열심히만 하지 말고 더 만들고 더 유능해서 열심히 하라.
37. 자기 차원에서만 보니 <주>를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한다.
38. 음악은 감각이고, 곡조의 반응이다. 모든 영계의 세계도 감각과 반응의 세계에서 좌우된다.
39. 하나님께 <반응을 잘 보이는 자들>이 자꾸 영계를 올라간다. <반응 없는 자>가 영계를 올라가는 자는 없다.
40. <반응이 좋은 자>는 하나님과 일체 되기 쉽다. 주의 말씀이나 주의 행실에 대해서, 주를 대함에 있어서 반응이 좋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상대’가 된다.
41. 육신이 지쳐도 지친대로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나가라. 신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라.
42. 이성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라.
43. 기독교는 2000년을 오면서도 자기가 믿는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도 모른다. 상식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
44. <역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며, 자꾸 미래도 점쳐나가는 것이다. 구약서부터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온 자는 ‘사람’이었다.
45. 메시아도, 선지자도, 사사들도, 영웅들도, 열사들도, 미인들도, 예술가도, 모든 운동가도 땅에서 왔다.
46. <사고>를 잘못하면 큰일 난다. 자기 사고에 자신 없는 자는 ‘메시아의 사고’로 돌려야 된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몸이니 황금천국으로 간다. 메시아에게 붙은 자는 함께 가리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각, 하나님께 반응을 제대로 보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응을 제대로 안 보이면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고, 혼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해 대지만 결국 기성 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때에 제대로 하나님이 말해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암시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자, 반응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데 반응도 없고, 하나님께서 해 주는데도 감사하는 반응도 없고, 이래서 쓰겠냐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닌 신부인데, 그러면 신부감이 안 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도 영육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반응 있는 자가 죽음에서도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간구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 사랑의 반응이 약한 자는 <사랑의 운명>이 달라진다.
2. <사랑의 반응>에 대한 시험을 보나니 이 시험은 인생 일생, 그리고 영혼까지 영원히 좌우되는 시험이니라.
3. <휴거 날>은 하나의 ‘결혼식 날’과 동일하다. 신랑의 사랑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이니 소리를 지르고, 큰일 나는 일 이기에 반응이 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4. 다니엘서에서 말하길, “의를 저울에 달아서 콩만큼만 무게가 덜 나가도 왕은 심판한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의’를 저울에 달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
5.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반응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영원히 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에서 벗어나게 된다.
6. 인간이 ‘최고의 사랑’을 해야 절대자 하나님도 사랑을 퍼부으신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고, ‘사랑’ 때문에 구원 역사를 펴셨다.
7. <사랑에 반응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사는 주관권에 못 들어간다.
8. 둔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시원찮게 사랑하면서 오던 자들은 <극적인 사랑 주관권>에는 못 들어간다. 그 세계는 들어간 자만 알지, 못 들어간 자는 모른다.
9. 구시대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알아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를 펴신 것은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10. 절대자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과 더불어 ‘일체’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시대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1.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못한 자들’은 모른다. 그러나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친 자들’은 새로운 시대를 발견해서 왔다. 주와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은 자가 왔다면 이방에서 건너뛰기로 왔다. 새 시대의 주인이 이방세계를 택해서 그들이 직접 오게 됐다.
12. 사랑해도 반응이 없는 자는 사랑을 투자할 수 없기에 그냥 지나간다.
13.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했다. 혼인잔치날 손님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안 오면 다른 손님을 그 자리에 앉힌다.
14. <역사>는 하나님이 꼭 채워서 하신다.
15. 사랑의 세계는 ‘개인 종목’이다. 개인 종목은 혼자 잘하면 금메달을 탄다. 그러나 ‘구기 종목’은 여러 사람이 하기에 전체가 잘해야 전체에 해당되는 상을 받는다. 그러므로 못 하는 자는 뺀다.

16. 섭리역사는 ‘구기 종목’과 같아서 섭리를 나간 자들의 그 자리를 꼭 채운다. <누군가 나간 자리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꼭 넣으시는 것>은 정한 이치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천륜의 법칙이다.

17. 절대적으로 꼭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항상 ‘전의 것’보다 ‘후의 것’을 더 좋게 하신다.

18. <첫 아담>이 못한 것은 <후 아담>을 세워서 하시고, 후 아담이 못한 것은 <마지막 아담>을 세워서 행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역사의 법칙’이다.

19. 본인이 열심히 잘 하도록 하라. 역지로 내보내지 않고 자리를 바꾸지는 않되, 열심히 하지 않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자리를 바꾼다.

20. 와스디는 ‘정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택한 여자이고, 에스더는 ‘정치가 완전히 잡혔을 때’ 택한 여자다. 또한 와스디는 ‘왕이 기른 여자’고 에스더는 ‘하나님이 기르신 여자’다.

21. ‘사람의 근본’을 말하자면, 처음에는 하늘을 찌르는듯한 마음과 행동을 하지만 바로 땅바닥을 기어 다닌다.

22. 그동안 ‘얼마나 좋아하는지’의 반응에 따라서 축복을 해 주었다. 너무 좋아서 계속 감사하며 감격하며 좋아하며 사는 자들은 ‘육적인 물질의 축복’도 누가 말하면 안 믿어질 정도로 해 주었다.

23. 섭리사에서의 축복은 물질은 작아도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누구도 못 따라온다. 영원한 나라의 황금천국까지 상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24. 반응이 약하면 운명이 바뀌느니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잘되고,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오늘도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깨닫고 모두 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가치를 알고, 자기도 귀하지만 상대도 귀하고, 위치대로 다 귀합니다. 축구할 때 보면 제일 귀한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수비가 있고, 공격진이 있습니다. 공격진이 골을 넣지, 수비는 골을 못 넣습니다. 그러나 수비가 있음으로 공격에게 불이 가서 불을 넣는데, 또 불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을 안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골키퍼도 중요하듯이 섭리사는 골키퍼도 있고, 수비도 있고, 공격진이 있습니다. “하나 돼서 행하지 않으면 늘 진다.” 했습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일체 되어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에 대해서 약해지면 너희 사랑도 운명이 뒤바뀐다. 후에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후회도 하게 만들고, 그때 빠져린 고통을 깨닫게도 한다.” 했습니다. 우리 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육이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성령을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대하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다.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있는 사랑을 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영육을 튼튼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해 주시고, 사랑에 반응 보이며 생활 속에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사랑에 둔감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깨닫고 살길 축복합니다. 영육이 잘되고 영원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은 ‘반응’이다.

2. 사람은 ‘반응의 존재자’다.

3. 인간은 자기가 듣는 대로 반응을 하고, 몸에 부딪히는 대로, 닿는 대로 반응을 한다.

4. 사람은 좋게 건드리면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고, 나쁘게 건드리면 또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인다.

5. 존재대로 반응을 보인다.

6. '귀'는 말을 하면 듣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뇌'에서 들은 대로 판단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반응을 보인다. '눈'은 바로 보면서 동시에 '뇌'로 전달하고, 생각으로 반응을 보인다.
7. 사람은 '판단의 반응'을 보이고, '생각의 반응'을 보인다.
8. 인간의 뇌는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 <무한한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아니라도 '자기 생각'으로는 세상을 가지고 놀고, 지구를 가지고 놀 수 있다.
9.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나간다.
10. '생각의 감도', '생각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은 생각을 하면 반드시 행동을 한다.
11. 지능이 낮은 자는 지능이 높은 사람이 한 일을 모른다. 그러니 <아는 것>이 '신'이다.
12. '코'는 냄새가 나면 반응을 보이고, '몸'은 차가운 반응이 오면 추운 반응을 보이고, 더운 바람이 불면 더운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못 느끼는 것은 피부 신경이 둔감해진 것이다.
13. 사랑은 반응이다.
14. 사람마다 다양성이 각각이기에 남이 좋아한다고 다 같은 반응으로 좋아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동일하다.
15. 이성 사랑보다 더 높은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영적 사랑>이요, <정신적 사랑>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통하는 사랑이다.
16. '이성 사랑'은 통하는 사람만 통하고, 안 통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통한다. 오히려 사랑하면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고 다 좋아한다.
17.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18. 사랑했으나 반응이 없는 자는 사랑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다.
19. 반응하는 대로 '운명'이 결정된다.
20. 하나님과 메시아는 '아가페적인 사랑'도 '이성 사랑'도 다 가지고 있다. 이성의 사랑이 없으면 그 쪽 센터를 뺏기게 되어 지구촌의 일부밖에 못 가지고 있을 것이다.
21. <주>는 '전체 이성의 사랑'과 '아가페 사랑'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심판주로서 대가를 주려 오신다.
22. 사탄들은 여러 가지로 사람을 꾀어간다. '주는 이성사랑은 아니고 정신적인 사랑만이다.' 하며 사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성 세계는 다른 데서 하게 만들어 결국 뺏기게 만든다. 이는 사탄의 '최고 마지막 작전'이다.
2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성 사랑'할 주권이 없으시겠느냐. 이성 사랑을 뺏기면 머리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체는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24.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육'도 '영'도 하나님께 다 바쳐라.
25. 하나님이 육을 창조하신 것은 '육적 사랑'도 받기 위해서이다. 육은 안 바치고 '영적인 사랑'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느니라.

26.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몸을 빼놓고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27. 지금은 ‘육’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다.
28.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성’이다. 영체만 사랑하면 ‘저승의 세계’다.
29. 육체를 붙잡고 이성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육’을 사랑하면 ‘이성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30. 사탄들은 교묘하게 메시아는 ‘영적 사랑’만 말한 것이라 하여 육체는 자기들이 취한다.
31.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육신을 사랑하려고> 창조한 것이다. 영만 사랑하려면 육신을 창조하지 않고 영만 창조했을 것이다.
32.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 사랑도 누리려고 창조한 것이다. 이를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된다.
33. 특히 <신부시대> 때는 육체사랑, 곧 육체를 직접 사랑하는 절대적인 기간이다. 그러나 신부가 되기 전에는 정신적인 사랑만 하는 때였다.
34. 성경에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간음한 것이니라.” 말씀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이 ‘이성 관계’를 한 것이다.
35.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육신 관계’를 하는 격이 된다.
36. <주의 육체>는 ‘보이는 영체’니라. 영적으로 살면 영체와 똑같다. 이 세상은 ‘육체를 가진 영계’이고, 저 세계는 ‘육체가 없는 영계’다.
37. 어렸을 때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는지’ 하늘 앞에 간구하고, 또 계속해서 연구했다. 결국 하늘나라는 이성 관계를 하는 세계가 아닌 것을 발견했다.
38. 영체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과일 모양’만 만들어놓았다. 과일 구멍이 없으니 서로 관계도 안 한다. 못 알아듣는다고 귀를 잘라버리면 얼마나 보기 싫겠느냐.
39. 하늘 세계는 마음으로 관계를 하고, 사랑이 이루어진다.
40. 생명나무와 금단의 열매로 관계를 하면 부분적인 만족이지만, 몸 전체로 하면 전체로 흥분된다. 이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육체로는 안 된다.
41. <뇌>는 전체의 신경을 다 통치하고 있다. 그러나 <금단의 열매>는 전체를 통치하지 못한다.
42. <금단의 열매>는 흥분되어도 8초 정도로 순간 짜릿하고 끝나지만, <뇌>를 흥분시켜놓으면 하루 종일도 가고, 10년, 20년도 간다.
43. <뇌 덩어리>는 <금단의 열매>에 비해 말초신경이 1000배는 더 많다. 고로 <뇌>를 흥분시키면 1000배가 더 흥분된다.
44. 하나님은 결혼하고 사랑도 누리고, 아기도 낳으라고 <금단의 열매>를 만드셨다. 그런데 ‘이성’으로만 즐기는 자는 결국 다른 세계에 많이 뺏기게 된다.

45. 아름다운 여인을 삼가지 않고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은 빼만 남는다.
46. <사랑>은 ‘반응’이니, 하나님은 사랑해도 반응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신다. 말했는데도 반응을 안 보이면 ‘저 사람은 귀가 먹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간다.
47. 항상 ‘반응대로’ 해 준다. 반응을 안 보이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
48. 2015년 3월 16일부터 법이 바뀌었다. 그 전에는 ‘연애기간’이라 하나님이 쫓아다녔으나 이제는 ‘사는 기간’이라 신부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
49.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면 자기가 먼저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찾고, 새벽부터 두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신다.
50.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반응하신다. 자기가 하나님을 건드려야 사랑의 반응을 보이시지, 자기가 안 하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
51. 하나님은 “나 여호와와 너희들이 대하는 대로 반응을 보인다. 믿음으로 대하면 믿음으로 끝나고,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니라.” 말씀하셨다.
52. <믿음>은 육신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라서 가다가 없어져버린다. 하늘나라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
53. <믿음>은 ‘원본의 사랑’을 세울 때까지 필요한 것이며, <소망>도 이미 이루었기에 더 이상 필요치 않느니라.
54.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 <사랑>만 남느니라.
55. 사랑은 영원히 존재하니 사랑이 최고니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은 반응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리로 정돈해 줬습니다. 이들이 깨닫고 더욱 알게 되었으니, 계속해서 금주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금주 일주일동안 시험 보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반응’이라는 시험을 보는 기간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행하라. 불합격 되면 역시 사랑의 반응자가 아니고, 역시 반항자가 될 것이고 무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영육이 잘되고, 온전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오늘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고, 필요한 일로써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 약한 자들 더욱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반응을 보여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마귀 귀신들의 모든 작전을 다 꺾었으니, 이를 깨닫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의미를 깨닫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를 펴셔도 잘 모른다. <모르는 원인>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신의 세계’라 멀게 느껴지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한다.
3. 어느 때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나 ‘자기 생각에 일어나는 반응’으로만 생각한다.
4. <신의 세계>는 사람이 아닌 다른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들어도 잘 안 믿어진다. 고로 <가장 확실한 전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해주고, 체험하게 만들고, 표적과 기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다.

5.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역사하실 때도 표적과 기적의 역사였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유도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6. 병을 고쳐 주고, 표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면서 행하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구원 받으라는 것이다.
7.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나 선지자나 중심인물과 같이 척척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잘 모른다.
8. ‘영계’는 ‘육계’와는 다른 별개의 세계다. 영의 세계를 보면 많은 생명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 지도 모른 채로 괴로워하며 따라간다.
9. 하나님을 믿고 길을 찾지 못한 자들이다. 영의 세계를 망상으로 생각하고, 꿈에 불과한 세계라고 생각했다. 모르니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생하는 것이다.
10. <지옥>은 휴가가 없고, 고통이 끝나는 날이 없다. 1초도 쉬지 않고 연속된다.
11. <지옥>은 땅에서 육신이 살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 무뎌서, 몰라서, 사랑치 않아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고 믿지는 않은 연고로 간다.
12.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사랑을 총동원해서 구원을 시키고 있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 영혼들은 거의 100%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3. 아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쪽정이 같은 인생들이 있고,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불신하고 그대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
14.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확인하라. 그러면 무조건 알게 된다. 하나님을 불러보고 찾아보아라. 찾게 되리라.
15. 사람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결정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의 심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때 사탄들이 와서 그 생각하는 것을 잡고 불신하게 만든다.
16. 사탄의 수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다. 100억도 넘고, 200억도 넘는다. 사탄들과 마귀들이 자기를 꾀고, 불신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든다.
17. 안 믿어져도 계속 믿어야 된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기분이 나빠도 계속 기분을 좋게 하며 사는 것이다.
18. <조건>을 세워야 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또한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
19. 사람의 심리를 볼 때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자꾸 흔들거린다. 과거에 잘했던 사람들도 흔들거려서 나가게 된다.
20. 선생은 어려서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절대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 어떤 비바람도, 눈보라도, 엄청난 추위도 <절대성>에 다 무너졌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니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간다.
21.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라. <반응>은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열심히 함으로 보이는 것이다.
22.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 대로 <시대 사명자는> 죽도록 충성해서, 다시 돌아와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시대를 끌고 나가게 되었다.

23.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 버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결심하고 해 나가야 된다.
24. 예전에는 증거하고도 <주인>이 없으니 자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증거 하면 금방 <주인>이 나타나는 ‘좋은 때’다.
25.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
26. ‘죽음’과 ‘삶’ 사이에는 게으르면 죽는다. 또한 <하늘이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면 ‘영혼’도, ‘육신’도 죽는다. <주의 말씀>을 중히 여겨야 되느니라.
27. <자기 때>를 잡아야 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잘 되는 때’다.
28. 새벽을 깨우고 지키며, 부지런히 뛰고 달리고, 정신일도해서 신적 삶을 살아야 할 때다.
29. 중단하면 사망으로 간다. 안 믿고, 안 뛰면 사망으로 간다. 존재하다가 안 하면 헛일이다. 과거에 잘 믿었어도 소용이 없다.
30.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서도 말씀을 주고 떠납니다. 부지런히 뛰고 달려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해서 많은 생명들을 하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왔음을 알고 잘 믿고 잘 해서 영원한 승리를 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활에 큰 소리 쳐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의를 드러내며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영도 육도 잘 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2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은 반응이다.
2. 수고한 자는 수고하고 항상 ‘수고의 대가’를 기다린다. 그러다 수고의 대가인 반응이 없으면 수고한 자는 처세를 달리한다.
3.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수고했어도 반응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4. 성경에는 한 임금이 손님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 한 사람이 임금이 원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왔기에 물으니 대답을 하지 않아서 내쫓은 비유가 나온다.
5.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옷>은 ‘행실’이다. 합당치 않은 행실을 하니 “왜 그런 행실을 하느냐.”하고 물었고, 대답이 없으니 쫓아낸 것이다.
6. 혼인잔치 집에서는 혼인잔치 행실을 해야 하는데, 그에 맞는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았다.
7.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보이되 ‘조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응을 ‘늦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며, 반응을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8. <사랑>은 최고의 극적인 단계다. <사랑>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9.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 하였다.
10.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시작하고, 사랑으로 마지막 신부 역사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고 마지막으로 끝나게 하셨다.

11. 구약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했고, 신약인들은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했다.
12. 역사가 끝났다는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자들’, ‘죽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다. 역사가 끝났다는 반응을 보이니 그 주관권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13. 역사는 끝날 수가 없다. 연속된다. 다만 <새로운 역사>로 반응을 보이며 갈 뿐이다.
14. 반응이 약하면 안 된다.
15. 가장 큰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다.
16.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사랑>이 ‘핵’이다. 그러니 사랑의 반응이 없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다.
17. 반응이 약하면 화가 난다. 하나님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지 마라. 걱정거리를 만들지 마라.
18. 사랑은 최고 극적인 세계라 제일 마지막에 내놓는 <마지막 카드>다.
19. 사랑으로 인해 운명이 바뀌느니라. 사랑의 반응이 가장 크다. 마지막 티켓은 하나님의 사랑의 티켓이다.
20. <주>는 누가 오든지 사랑으로 대한다. ‘공격자’가 와도 ‘반응자’가 와도 ‘시원찮은 자’가 와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본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랑의 반응이 없으면 안 된다.
21. 100% 역사만 하나님 최고의 역사를 이룬다. 100%가 되지 않는 것으로는 황금천국을 내어주지 않는다.
22. 하나님께서 <마지막 황금천국 카드>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 그 반응에 따라 황금천국을 가는 자도 있고, 변두리로 가는 자도 있고, 못 가는 자도 있다.
23. 반응이 가장 크고 좋은 자, 실천자는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다. 황금천국은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구약의 세계와 나머지 잡다한 세계들이 더 밑으로 있다.
24. 길을 가다가 ‘금’을 주워도 많이 주워야 효과가 있듯이 ‘사랑’도 반응을 조금 보이면 별 효과가 없다. 사랑만큼은 A급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
25.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사랑인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만족하게 채워드리지 않고서는 황금천국의 중심, 핵심지에 절대 못 간다.
26.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여라.
27.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해 주시는데, 사랑의 반응을 안 보이면 안 된다.
28.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성관계’로 대하는 것이다.
29. 하나님을 좋아해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관리를 하는 여러 가지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다.
30. <3.16> 때 결혼했으니 이제는 사랑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라.

31. 하나님이 사랑해주시는데 반응이 없으면 ‘신경이 없는 자’요, ‘식물인간’과 똑같은 자다.

32. 15년, 20년이 돼도 못 고치는 병들을 1분의 순간에 고쳐 주었는데도 고마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

33.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진실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은 반응이라는 말 한마디 갖고 이제는 다 매듭을 짓사오니, 우리의 성능이 좋게, 우리의 몸, 우리의 뇌 생각이 충만하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고와 해답이 없게 해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항상 잘되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을 건강케 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늘 처리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니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을 할 때 껴안고 키스해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사랑하여 이것도 저것도 해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랑에 충만케 해 주시고, 많은 생명들에게 이 시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가치 있게 뜻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행하게 해 주시고,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성자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민족과 세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사랑은 반응이다.
2. 사랑의 반응을 보고 측정한다. 사랑의 카드가 최종의 카드다. 사랑의 반응을 안 보인다면 끝난 것이 아니겠느냐.
3. 사랑하면 물질이 가고, 권세를 주고, 늘 가까이 대해 주고, 모두 잘 되게 해 주고 관리해 준다.
4. 사람이 잘해 주는데도 반응을 안 보이면 가장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심정이 상한다.
5.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 ‘시험에 합격된 것’이다. 반응을 안 보인 사람은 운명이 갈려져 나간다.
6. 반응을 안 보이는 자를 데려다 살아봤자 보람이 없다. 시간을 내주고 가까이 대해 주는데, 반응이 약하면 절대 안 된다.
7. <사랑>으로 ‘검진’해 보면 최고로 검진이 정확하게 나온다. 고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검진해보고 반응을 안 보이면 더 이상 없다 하신다.
8.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시험에 합격된 자’로 보고, 반응을 안 보인 사람은 ‘불합격’으로 보신다. 그러면 다시 재수해야 된다.
9. 사랑의 반응이 약한 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 그동안 하나님이 도와주고 함께하신 것은 사랑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10. 사랑의 반응이 없는 자는 ‘사랑에 대한 불’이 안 온다.
11. 무조건 ‘성품’으로 반응을 보이고, ‘정신’으로 반응을 보이고, ‘행실’로 반응을 보이고, ‘감탄’으로 반응을 보이고, ‘놀람’으로 반응을 보이고, ‘기절초풍’하며 반응을 보여야된다.
12. <3.16> 때는 기절초풍했어야 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을 100% 알아야 한다.

13. <반응>이 좋아지려면 ‘영적인 사람’, ‘정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14. 육적인 사람은 둔감해서 반응을 잘 못 보인다. <정신>에서 둔감하면 반응이 약하다. <정신>이 예리한 사람은 사랑해도 굉장히 예리하다.
15. 지금은 <신부시대>라 ‘사랑을 가지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 민감해야 된다. 사랑에 둔하면 얻을 것도 못 얻는다.
16. 평소에 아침부터 밤까지 꾸준히 끊임없이 사랑에 신경 쓰고 해야 된다. <꾸준하게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훌륭한 마음이요, 위대한 마음이다.
17.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옆에 있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일이다. 그것을 보고서도 뒤집어지지 않느냐.
18. 반응이 좋고 행동하는 사람은 큰 사람들이다.
19. 항상 민감하고, 예리하고, 칼날같이 할 때는 해야 된다. 칼날 같은 생각이 없으니 칼날 같지 않다.
20. 흐리멍덩하게 살면 ‘사는 맛’을 못 느낀다. 끊을 것은 탁탁 끊고, 이을 것은 이어주고, 용접하듯이 용접해 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21. 뇌에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라고 뇌에 전파를 보내시고, 뇌에서 감동되어 움직이게 만드신다.
22. 반응에 대한 근본 철학을 깨닫고, 하나님께 반응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는데도 가다가 또 흐리멍덩해지면 큰일난다. 할 수 없이 하늘나라 변두리에 가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23. 하나님의 사랑은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요, 죽음에서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요, 자기에게 합당하게 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24.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진짜 사랑>은 심정, 마음, 각종 것을 다 살피주는 것이다.
25. 이제는 살아있는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 챙겨 주고, 인도해 주고, 서운한 것도 얘기해 주고 풀어 주며 살아라.
26. 항상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서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국의 전국 각 교회들, 한국을 중심한 세계 각 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감각이 예리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감각이 둔한 자들 돼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해처럼 뜨겁하고, 달처럼 맑고 아름답고, 별처럼 역시 번쩍거리고, 기치를 벌인 군인 같은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제 반응에 대한 말씀을 다 끝마치고, 시험도 모두 다 이제까지 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데 가르쳐 줬으니, 이제 온전히 살게 축복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중심한 유럽의 나라들, 전체를 한 교회 교회마다, 한 개인 개인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돕고 함께하시고 합당케 해 주시는데, 반응이 약한 자들은 죽어 둔감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반응을 보인 자는 다 산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이 반응을 행실로도 보이고, 마음으로 보이고, 말로도 보이고, 감탄으로 보이고, 고마워함으로 보이고 모두 각각 정신 차려 보이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이다. 아멘.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분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엄명한 말씀이니라.

2. 항상 무엇을 하든지 결정할 때는 ‘분별’하라.
3. <분별>은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을 택해야 하는 입장이니 분별하라는 것이다.
4.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가장 많이 닥치는 것이 ‘분별의 사건’이다. 하루에도 몇 건씩 있으며, 어떤 것은 일생을 좌우할 사건도 있다.
5. 우리가 살아갈 때 ‘분별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다. 결혼 문제, 진로문제도 마찬가지로 분별 과목에 들어가 있다.
6. 분별할 때는 100% <확인>해야 된다.
7. 사람들은 인생문제에 대해서나 앞날에 대한 진로를 많이 궁금해 한다. 사실상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8. 한 번에 다 풀릴 수 없고, 가면서 풀리는 것이 있다.
9. 선생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의문을 품고 살았다. 그러다 15살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뭘 해 먹고 살지는 오랫동안 결정을 못 했다.
10. 분별을 잘못하면 정말로 큰 손해가 갈 것이 많다.
11. 선생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제일 고민하며 결정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서 정말로 애먹은 것이 있었다. 결혼 문제에 세 번 크게 부딪혔는데, 분별하여 어려움을 피해갔다. 두 번은 교회의 교역자가 소개하면서 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어렵게 벗어났고, 세 번째는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다. 결국 짝사랑으로 끝났으나 그로 인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12. ‘한 센터’만 놓고도 수십 번씩 분별할 것이 온다.
13. <분별>은 우리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다. <분별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14. <분별>하려면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한다. 꿈에서 보여주니, 문제를 확인하라.
15. 분별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16.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몰라도 틀어서 역사를 해 주신다.
17. 앞날이 어떻게 될 지를 놓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
18. 선생은 과거에 그렇게도 앞날에 대해 궁금해 하고, 앞날을 알려 주면 알려 준 자를 위해 살아주겠다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안 가르쳐주셨다. 알면 오히려 안 되기 때문이다.
19. 어떤 일은 과정 가운데 계속 가면서 목적을 완성해야만 그때서 안다. 그러니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20. 그렇게까지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를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선이다.
21.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는 하나씩 따지고 분석하면 답이 나온다.
22.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된다.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알아야 될 답도 많이 있다.

23. <시대 사명자>도 똑같은 한 사람이니, 시대의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알게 된 것이다.

24.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25. <제일 큰 분별>은 메시아를 만나서 절대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에 ‘영원한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 ‘휴거문제’까지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그 주관권의 역사를 펴고 가신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 인생을 통해 볼지라도 참으로 걱정 근심 염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했던 때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염려할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결혼에 대한 모든 사건이 왔을 때는 분별하고 처리를 해서, 결국은 잘되고 만 것을 이제서 알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으로 이들을 더욱 날마다 지켜 주셔서 이들이 분별하는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날마다 함께해서 분별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해석하고, 분별로 인해서 역사의 답을 찾고. 분별하면 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게 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따지면’ 분별을 할 수 있다. 안 따지면 분별을 못 한다.
2. ‘분(分)’은 나눌 분이다. 서로 나눠야 한다. ‘나누면’ 분석이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다.
3. 분석하고 분별하도록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성령이 계시해 주신다.
4. ‘문제’를 가지고 풀면 분석이 나오고, 분별이 나온다.
5.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할 일은 여러 번씩 닥친다.
6. 선생은 주일부터 분별할 사건이 바로 닥쳤다. 어떤 일을 확인하기 전에는 하려고 했었으나 확인 후에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7. <분별>은 ‘확인’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모두가 확인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
8. 확인할 것도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만물’을 통해서 직설적으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신다.
9. <분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는 것과 같다.
10. <분별의 말씀>을 받은 것이 곧 <분별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11.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아는 것’이 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12. <분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분별한 자’가 된다. 그러면 손해가 가고, 결국 걱정, 근심, 염려와 지옥에 속한 것이 닥치게 된다.
13. 선생은 산에서 기도할 때 ‘학문의 공부’를 분별하여, 성경책이 온 인류가 배우는 책보다 위대한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14. 결국 성서의 말씀을 학문의 세계보다 크게 보고 위대하게 보는 것을 분별했다. 그때부터 성서의 말씀을 읽고 풀고

행해보면서 유익을 얻게 되었다.

15. <학문의 세계>를 배우고 행하면 육적 유익은 있으나 영적 유익이 없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까지 관련되어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익이 있다.

16. 환난이 일어나면 ‘머리’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다. <주>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으로 <증거자>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환난이 일어나도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있는 자들’이다.

17. 신랑에게 환난이 일어나면 신부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집 사람들이, 형제들이 받게 된다. 그 다음은 이웃집, 그리고 그 지역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18. <성자>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돕고, 감동 주고, 계시로 보여 주고, 만물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 연결이 가게 된다.

19. 직접 하나님께 가기보다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항상 해 나가야 된다.

20. <성령님>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귀신’을 부르면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을 부르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니 <성령님>을 자주 부르고 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

21. 분별을 잘못하면 ‘육신’이 죽는다.

22. ‘병’을 잘못 분별하면 아직은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사고와 다르다. 반드시 냉철하게 분별하고서 정기적인 검진도 받고, 치료도 해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사 분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르쳐 줘서 그것을 배우면 분별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분별의 은혜에 참으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부분적이었습니다. 주가 오기 전까지는 분별의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분별인가.’ 잘 몰랐습니다. 직접 완벽하게 가르쳤을 때는 분별의 은혜를 받고,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자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일주일 동안 많으니 그 내용을 모두 적어라. 적어서 한권의 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분별의 과목이 되게 해서 그것을 너희들이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알게 될 것이다. 들을 때는 ‘아 이거구나!’ 하지만, 일주일동안 한 말씀을 다 잊지 않고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했다가 그것을 쓰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자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에 분별에 관한 말씀을 주니, 듣기도 하지만 기록하고 행해야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복이 뭐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왔습니다. 이 교회 살까, 저 교회 살까 여러 군데 건물이 났는데, 그때도 분별했습니다. 분별했을 때 이 교회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전에 다른 건물이 났는데, 그것 하려다 “더 좋은 것은 더 늦게 난다. 다시 찾아보자.” 했을 때 다시 찾아봐서 이 건물을 사게 됐는데, 이 건물이 훨씬 좋습니다. 이와 같이 분별하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분별 잘 못하면 옷 한 벌 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굳힌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하오니 전국교회를 살 때도 그러했고,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나 분별치 못하는 자들은 그동안 선생님 십자가 질 때도 끄집어낸다고 각종 돈들을 동원해서 분별없이 행했습니다. 그들은 다 손해가 갔지요. 분별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분별력 있는 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 시대 증거자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많은 자들을 신앙을 계속 넣어주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령의 생각이요. 돈 갖고 빼 내려고 했던 것은 사탄의 생각이요, 마귀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별을 못하면 심판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별한 자들은 해를 안 받고 오늘도 싱싱히 살아서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별의 은혜를 받아라! 은총을 받아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돈 써서 빼 내려고 한 사람이 있느냐. 그 시대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시대가 2천년이나 발달됐어도 분별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뭐가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은혜를 주셔서 경제손실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했사오니, 그 분별대로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오니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육적으로만 분별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해서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고 형통되며, 그리스도의 날에 제대로 나타나라 했습니다.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

서. 이 지역에 많은 생명들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시대에, 성약 시대에 불러야 될 자들을 불러 주시고, 내가 이들을 부르노니, “영들이 오고 육들이 와라. 많은 생명들이 차고 넘칠 지어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와 온 지구촌에 있는 각 교회에 그와 같이 택한 백성들이 계속 와서 이들을 맞고, 가르치고 하는 데 전념을 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이 되도록 이들을 축복 합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분별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것, 더 이상적인 것,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 주의 뜻, 시대의 방향, 시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별하고 알고 행하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어 그 뜻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막고, 반대하고, 입을 벌려 갇은 험담과 악담을 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은 ‘시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셨다.
3.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 준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4. 하나님은 <역사>나 <때>를 미리 짜놓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5. 우리가 하루 종일 행해야 할 일을 짜놓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천지 창조와 우주 창조의 목적을 이미 구상하고 아시기 때문에, 아예 부터 창조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짜놓으셨다.
6.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짜놓지 않고 행하는 자들도 있다.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우선 급한 대로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짜놓고 행하는 사람도 있다. 집을 짓는 사람이 한 집을 다 지을 때까지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어떻게 완성할 지를 짜놓듯 그려놓는다.
7. 하나님은 우주만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항상 계획하고 행하신다. 그 계획은 거의 다 실천하셨다.
8. 예수님이 “때를 분별하라.” 하신 것은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다.
9.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축복치 않고, 형벌하리라 하셨다.
10. 당세 때 우상을 섬겼으면 ‘당세’에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4대’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
11.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잘못되니, 그 당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4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 주관권의 구원역사를 연속 맞고 살 수밖에 없었다.
12. 하나님은 계획을 해 놓고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어느 시대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역사를 펴시는지를 안다.
13. 각 센터마다 아는 자는 <때>를 분별하고 안다.
14. <때>를 모르고 사는 이 시대 사람들이다. 기성 교회들도 지금의 때를 모르고 산다.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이다.
15. <때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시대의 선지자들’이요, ‘메시아’다.
16.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펴는 때>다. 그러나 ‘펴는 자’만 알지, ‘모르는 자들’은 전혀 모르고 기다리기

만 하고 있다.

17. 유대종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러나 항상 온다는 자는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왔다.

18. <오는 자>는 '다른 주관권'에서 온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는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지 않고 신약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다.

19. 해가 떠서 비추는데 해가 뜬다고 예언하는 사람은 없다. 내일 해가 뜰 것이라고 다른 주관권의 예언을 한다.

20. <기다리는 시대>는 그 주관권에서 기다리나 <예언>은 앞날을 두고 해 놓는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은 당세만 생각 하나 역사는 새 시대에서 일어난다.

21. 신약시대 때 당세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올 것을 기다렸다. 당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다시 오리라는 얘기도 안 했을 것이다.

22. 새 시대가 시작되어 구시대와 겹쳐있을 때 구시대 사람이 건너올 수 <최고 좋은 적기>를 맞은 것이다. 겹쳤을 때 '끄트머리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 그런데 그 적기를 불신한 것이다.

23. 예수님 때도 구약과 신약이 겹쳐있는 그 당세 사람들을 보고서 "때를 왜 이렇게도 모르느냐." 하셨다.

24. 새로운 시대에 겹쳐 사는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구시대에서 바로 건너될 수 있다. 조상 때부터 기다렸는데 못하니 그리도 안타까운 것이다.

25. 마지막 끄트머리 사람들이 건너왔으면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까지 영향권에 들어가서 일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시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의 선조들까지도 연결이 안 된다.

26. 끄트머리끼리 연결되면 되는데, 마지막의 <핵>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 '전체'가 연결이 안 되었다.

27. 가나안 복지를 가는 데는 구시대 사람들은 연결이 안 되고, 젊은 시대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어 역사를 폈다.

28. 역사를 보면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자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체 되어 같이 역사를 가되, 다양한 자들이 따랐다. 구시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따르기는 따랐으나 조금 따랐고, 그 자녀권인 2세들이 따랐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따르며 다양하게 따라가기 시작했다.

29.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큰 것은 이미 가르쳐 주었다. 지금은 성약시대로 메시아가 와서 말씀을 전해 주고 새로운 시대 역사를 편다.

30.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기성에서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메시아를 맞고 휴거되는 역사>다.

31. 항상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 본다. 자기 주관, 자기 사고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는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관으로 봐야 정확하다." 했다.

32. 시대를 분별하면 시대 역사를 따라온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은 무분별하고, 악평하고, 불신하고, 불만을 품고 좌절하는 자가 되어 따라오지 못한 주관권에 있다.

33. 하나님의 역사가 왔어도 자기가 받아들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지, 시원찮게 해서는 안 된다.

34. 시원찮게 하다가 신앙이 무너지니 그때부터 불만이 일어난다. 자기 신앙 책임을 못해서 나간 자들이 큰 소리 팽팡

치면서 우리를 원망한다.

35.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무너지는 이유는, '더 좋게 하려고' 놔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 쌓는 마음을 강하게 줘서 더 좋게 쌓게 만드신다.

36. <제일 무서운 것>은 서운함을 타고, 섭섭함을 타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험한 신앙들'이다.

37. 무조건 자기만 지적하고, 자기가 온전히 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대화도 해 주어야 한다.

38.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본인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

39. 지나가는데 돌이 자기에게 걸린다고 돌을 차고, 아파도 자기 사고대로 고집을 부리며 계속 돌을 차다가는 발이 절단난다.

40.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돌이 되리라. 돌을 차는 자는 아플 것이고, 차지 않고 귀히 쓰는 사람들은 귀하게 기쁨을 누리고 살 것이다." 하셨다.

41. 돌을 귀히 여기며 쓰는 사람이 있고, 돌을 귀히 여기지 않고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박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

42.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 역시도 '길가에 놓인 돌'과 같다. 가다가 걸린다고 발로 차는 입장과 같이 섭리를 나간 자들이 자꾸 악평하고 각종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43. 거짓말을 하는 자, 원망하는 자들은 가나안 복지에 못 간다. 하나님이 절대로 보다 이상적인 기쁨의 세계로 못 가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다.

44. 섭섭함을 타는 자들은 루시퍼 꼴이 된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터치하고 막다가 천사인데 지옥으로 쫓겨났다.

45.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사람보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욕을 하고, 악평을 한다. 그 순간은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의 원망을 풀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신다.

46.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행하는 만큼 바로 친다. 하나님을 하는 일을 막으면 하나님께 혼나고, 성령께 혼나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혼나고, 세 번 혼난다.

47. 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 받고, 성령께 칭찬 받고, 따르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축복도 세 번씩 받는다.

48. 항상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

49. 갈릴레이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매달아놓고 재판했다. 그 무지함으로 역사의 치명적인 비판을 받았다.

50.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동하고 죽어야 제대로 영이 형성된다. 영계를 보면 제대로 가는 영들이 별로 없다.

51. 어떤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모두 해 나가라. 악평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쓴잔이 날아간다.

52. 임금이 내리는 사약을 먹으면 육신만 죽고 끝나지만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은 육신과 영혼을 멸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모든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분쟁과 두려움의 역사로 변해 버린다.

53.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다. 한번 해 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긴 자들의 주권이 그리도 크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때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치 않고, 전능자 하나님이 하시는 데 반대하다가 차 밑에 들어가 갈려 죽고, 불 속에 들어가 불에 타 죽고, 이런 무서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사망으로 간 자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육적 고통은 그렇게 끝나지만, 영원한 고통은 1초도 쉬지 않고 일어나고 그렇게 영원히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기분 나빠도 모두 참고 견디고 마음 아파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뜻을 펴게 해 주시고, 천년사 역사를 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의 정신으로 모두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물이 피가 되고, 피가 물 되게 하는 그 보낸 자로 인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에게 손을 대노니 공의로운 심판을 하노니,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은 대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요, 다만 그 상황이 그러한가 알아볼 것이고, 그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로잡아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자들,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사망에 속한 자들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대 때를 알고 행하라. 때를 몰라 그러하니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참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시되,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과 함께하고, 아픈 자 병든 자 고통 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모든 이동하는 차량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안전하게 해 주시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할일 하게 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망과 사탄을 저주하며, 사망과 사탄을 모두 책망하고 이들을 모두 심판하니, 이들이 사람에 속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사 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삼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엄명하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분별하고 살라.
2. <분별을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실패하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3. 지식이 있어야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지혜가 없어 망하며,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
4.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야 안다.
5. 배우고 알면 분별이 되는데, 배우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아예 듣지 않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니 분별을 못 하는 것이다.
6. 예수님 때도 <시대>로 분별할 수 있었다. 비유컨대 <계절>로 볼 때 ‘겨울’에는 ‘겨울 시대’로 분별해야 겨울 상황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겨울인데 ‘여름 시대’ 혹은 ‘가을 시대’로 분별하니 겨울의 삶을 못 하는 것이다.
7. 절대적으로 <때>로 풀어야 된다. 유대인들은 때를 모르고, 때로 풀지를 못했다. 때를 무시하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으로만 풀어서 틀린 것이다.
8. <자기 생각>은 <자기 때>로 굳어진다. 자기 생각은 ‘그 주관권으로 굳어진다’는 말이다.
9. 예수님의 세계는 구약 주관권이 아니라 신약 주관권이다. 그러니 구약 주관권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못 본다.
10. 자기 사고는 자기 주관권의 사고를 받고 자기 주관권의 생각을 한다. 생각도 그렇게 보이고, 생각도 그렇게 하니,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

11. 바다 위에 있는 자들은 보이는 것이 물이요, 배요, 파도요, 풍랑이니, 그 주관과 사고만 짝 가지고 있다. 그러니 육지에 있는 사람들과 사고와 생각도 다르고, 행하는 것도 다르다.
12. 신약시대는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해가 떠서 환하게 보이고, 빛 가운데 사는데, ‘밤에 사는 자들’은 해를 못 봤으니 달만 보고 주장하고, 별만 보고 최고라며 주장하는 격이다.
13. 지금까지도 구약인들은 어둠 속에 사니 해를 못 보고, 달과 별을 해로 섬기고 산다. 성경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에 속한 자들을 모른다.” 고 했다.
14. 구약권에 사는 사람들의 희망은 그 주관권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더 좋은 세계를 갈망하고 살았다.
15.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얘기’가 있고, ‘특수한 얘기’가 있다. 특수한 얘기는 ‘희망적인 얘기’다.
16. 성경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때는 엄청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을 도와준 이야기는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되니 하나의 ‘옛날이야기’로 본다. 그러나 앞날의 희망된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적극성을 피우게 된다.
17.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큰 희망적인 것은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만 뽑으면 결국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다.
18. <구시대>에서는 신시대의 성경을 못 푸니, 그 주관권의 사람들은 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반대하고, 막는다.
19. 또 하나의 반대자는 ‘밋다가 나간 자들’이다. 더 이상 같은 길을 가지 않으니 반대하는 것이다. 어느 회사라도 나오면 그 회사를 좋아하지 않듯 시대도 그렇게 되어 있다.
20. 구시대는 구시대의 주관권으로 듣고 보니 구시대의 주관권으로 본다.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와 생각도 그 주관대로 가지고 있다.
21. 원숭이는 원숭이 주관권을 가지고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주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되어 갈 때는 싸우지 않는다.
22. 우리들은 늘 웃으면서 지내고, 기쁨으로 지내고, 화평으로 지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23.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제일 무섭다. 한 마디 잘못해서 한 마디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배, 1000배, 4000배까지 받게 된다. 때 지나면 구출할 시간이 없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시대를 가르쳐 분별하라 했습니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지, 똑같은 말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밀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그들에게 시대를 풀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대에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성령이 풀어주시고 이 백성들을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였듯이 ‘우리 단체밖에 없구나.’ 했지만, 엘리야 이외도 70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낙심치 말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외에 7000배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악평하는 대로 그렇게 믿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10배면 50만 명, 100배면 500만 명... 이렇게 되면 모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는 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도 이 시대 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사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증거하여 그 마음을 갖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릇된 사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구름아 멈춰라. 물아, 바다의 물아 멈춰라.” 하듯이 이들의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고 다 온전히 되기를 원하노라. 나의 이 많은 말이 그들의 머릿속에 뿔속 깊이 들어가서 뒤집어질지이다.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하노니 그리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섭리의 영육을 힘 있게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019년 3월 29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때도 분별하고, 사건도 분별하고, 사람도 분별하고, 자기도 분별하고, 하나님도 분별해야 한다.
2. 길이는 재 봐야 분별이 나오고, 무게는 달아 봐야 분별되고, 수학적인 것은 공식으로 따져 봐야 답이 나와서 분별이 나온다.
3. '마음'은 이리 저리 변하니, 항상 <진리의 말씀>에 기본을 놓고 생각하면 분별하는데 빠르다.
4. 기본 공식이 있듯이 '마음의 기본 공식'은 절대자 하나님께 놓고 거기서부터 따져 나가는 것이다.
5. <측량 기점>을 잘못 두고 아무 데서나 측량을 하면, 하루 종일 측량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
6. 마음도 기점이 있으니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는 <주>로부터 시작해서 측량해 나가야 된다. '자기'로부터 측량해 나가면 안 된다.
7. <자기로부터 측량한다>는 것은 자기 위치, 자기 중심,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8. 땅을 측량할 때 '자기가 유익한 곳'에 꽂아 놓고 측량하면 안 된다. 측량은 항상 <정부 기준>으로 측량하는 것이다.
9. 자기로부터 측량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준을 두고 해야 서로 측량이 나온다.
10.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11. 성경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더하기 '그 시대의 상황'을 해야 된다.
12. 사람들은 '자기 말'을 존귀히 여기고 '자기 말'을 존재시키려, 성경도, 사람의 상황도, 자기 생활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 나간다.
13.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본다. 구약의 원인과 신약의 결과요, 오전의 원인과 오후의 결과다. 결과로써 원인을 안다. 또 원인에서 결과를 찾는 것이다.
14. 성경을 풀 때는 외골수로 풀면 안 된다. 한 구절이 맞다고 곧이 곧대로가 아니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분별하고 보면 다른 것이 많다.
15. '자기'를 빼고 분별하라. '자기 생각'을 빼고 분별하라.
16. <하나님>의 성경이다. 메시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니 자기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신의 역사>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계산을 하면 안 맞다.
17. 자기 생각을 개입해서 성경을 풀면 자기에게는 맞아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고 답이 아니다. 자기는 끼어들지 말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18. 하나님의 뜻대로 밤새도록 산다고 해 놓고서 실제 살 때는 자기 뜻대로 산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

가는 역사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심되어 자기 의지로 간다.

19. 그런 자들은 영계서 보면 혼자 가고 있다. 주님도 따라가지 않고, 천사들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인도하지 않고 혼자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열심히 하니 보람을 느끼며 간다.

20. <자기를 버리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것이다.

21. 분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면, ‘머리’만큼 많다. ‘머리카락 수’만큼 많다는 것이다.

22. <자기 일>의 분별을 꼭 해야 된다. 자기가 하는 일로 자기의 화가 오고 복이 오니, 자기가 하는 일마다 항상 분별하고 하라.

23. <주의 뜻대로>만 하고, <주의 말씀대로>만 하면 사고가 하나도 안 난다. <주의 뜻대로> 안 하니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둠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24. 육신이 현재 살아있어도 그 행위에 따라 영이 사망 쪽으로 가거나, 혹은 생명 쪽으로 간다.

25. 육신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자는 육신도 영도 생명권에 있다. 반면 육신이 살아 있는데도 그 영이 지옥에 가 있는 영도 있다.

26. <휴거>의 최고 강도 높은 것은 ‘사랑’이다. 휴거는 사랑으로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세계로 본다.

27.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어느 급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다. 휴거의 단계도, 삶의 단계도 마찬가지다.

28. 성경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분별할 것이 많지만, 항상 ‘자기’를 분별하고 자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자기를 알아야 된다.

29. 분별할 것이 많이 있다. 지혜로 분별할 것도 있고, 달아서 분별할 것도 있고, 끈으로 재워서 분별할 것도 있고, 무게가 같으니 질로써 분별할 것이 있다.

30. 변치 마라. 사랑도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마라. 사탄이 너를 시험할지 모르나 틀림없이 이것은 영원하다 하고 하면 사탄이 떠난다.

31. 한 번 마음을 옳게 먹고서 그대로 변치 않으면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다. 사람은 단단함을 마음으로 재고, 정신으로 재고, 운동해서 만든 체질로 잔다.

32. 하나님은 욥에게 ‘마음’이 ‘악어’ 같다고 하셨다. 사탄이 욥을 다 때려 부수고, 양떼와 소떼 잃어버리게 하고 환난 풍파를 주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굳건히 믿었다.

33.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은혜를 더해 주사 그 전보다 더 예쁜 아들딸들 낳아서 따르게 만들었고, 전보다 양떼와 소떼를 더 감당할 수 없게 많이 주셨다.

34.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병이 와도,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이 시험을 하는 것이 있으니 시험에 들고 흔들리지 말라.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분별하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급한 대로 우선 자기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 잘되고 있는가 못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잘하게 해 주시고, 또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하고 잘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새벽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세계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잘 깨우쳐 주시고 알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

나눔께서 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 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가서 말도 하고 애기도 하고 전해도 주고 또 따지기도 하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 편에서 먼저 일어나서 하늘 편 아벨 편을 힐문을 합니다. 그럼 아벨 편은 그걸 얻어맞고, 다시금 가서 애기하면 하나님은 아벨 편에 역사를 일으키니까 역사가 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항상 역사가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온전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에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오늘도 이들이 잘되고 형통되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분별하며 따져가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생명의 손해도 오고 어느 때는 물질의 손해도 오고, 어느 때는 여러 종류의 세계가 무섭게 오는데, 분별을 천천히 잘하고 판단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3월 30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분별하라.
2. 마지막으로 크게 나누면 선과 악, 지옥과 천국 같은 세계다. 다른 말로 하자면 실패와 성공, 손해와 유익이다.
3. <영적 전쟁>은 신앙의 전쟁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쟁같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
4. 전쟁터에는 그때그때마다 늘 문제가 있어서 판단하고 풀어나가고 분별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도 많다.
5. 아무리 잘해도,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도 문제는 항상 일어난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행치 않으면 생명 길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격이 된다.
6. 사회 세계도 마찬가지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뜻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의 일을 행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농사짓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지으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긴다.
7.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아 있으니 계속 일어난다. 잘해도 상대는 대적하고, 못해도 상대는 대적하니 우리가 늘 마음을 굳세게 하고 가야 된다.
8.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다보니 문제가 일어났다. 시대도 생명을 구원하지 않고 놔두면 문제가 안 일어난다.
9. 아무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10. 고기를 잡으러 가면 파도를 만나게 되고, 물에 빠지기도 한다. 아예 고기를 잡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고기를 하나도 얻을 수 없다. 시대도 마찬가지다.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한두 명이 잘못해서 모세를 원망함으로 전체가 원망 속에 빠진 격이 되었다.
12. 항상 <역사>는 '개인적'인 것은 승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승리하기가 어렵다. 100명, 1000명이 똑같이 100%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이제는 모두 <생활의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가야 될 입장이다.
14. 항상 자기만 절대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가면 자기만큼은 성공한다. 각자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
15. 섭리사는 아직 전체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전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믿고 따르며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6. 항상 하나님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신으로서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고 절대적인 말씀을 주며 절대적으로 도와도 사망으로 가는 자들은 사망으로 간다.
17. 역사는 <구기 종목>과 같다. 옆 사람이 못해서 잘 하는 사람도 진다.
18. 수영을 하다 보면 자기는 수영을 잘 해도 옆 사람으로 인해 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19. 과거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일을 저지른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고 철저히 해 나가야 된다.
20. 다른 사람은 무너져도 자기는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무너지면 끝난다.
21. 무너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 무너지고, 믿음이 없어 무너지고, 힘이 없어 무너지고, 오해해서 무너지고, 자기 생각 때문에 무너진다.
22. 하나님은 '하나'만 잘한다고 '전체'가 잘했다고 보지 않으신다.
23. <구원의 역사>는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구원시키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24. 선악을 분별하라.
25. 잘못하면 지옥으로, 잘하면 천국으로 가고, 못하면 실패로, 잘하면 성공으로 가고, 잘하면 유익된 길을 가고,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세계로 간다. 이런 세계가 계속 공전하며 간다.
26. 대개 보면 '지도자'도 잘해야 하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 항상 따르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27. 잃어버린 양을 구하려다 문제가 일어나고,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당겨오다 문제가 일어난다.
28.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가면 되는데,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대하고, 자기 생각으로 대하니 문제가 된다.
29. 옆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면, 책임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는 책임을 했어도 단체전에서 패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시대의 승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30. <역사>는 승리로 끝나고 이겼다. 또 싸우면 또 이긴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 나가야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아픈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혼을 또 해야 될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사 행해 주시옵소서. 항상 역사는 하나님 보낸 자들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때도 모세는 잘하고 갔지만, 모세의 형제, 따르는 자들 중에 몇몇이 모세를 악평하니 모두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악평해 버리고 가나안 복지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 때도 야곱은 열심히 했어도 그 형이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행하여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요셉도 자기 길을 가는데 형제들이 미워함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시대마다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세계는 성서에 실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영원한 세계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손이 돼서 이들을 치료하는 시대를 모두 망각하며 대하는 자들 있기로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치료해 주시고 이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잡아주고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주시고 항상 합당케 해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행해 주시고, 모든 약한 자, 병든 자, 정상

되지 못한 자, 모든 악평하는 자, 악을 토하는 자, 그릇되게 자기 주관으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질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두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도 있고, 또 그릇이 좁으니까 큰 그릇이 들어갈 수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시대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것을 헛되이 받지 말라.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자기 시험에 들고, 자기 주관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이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꼭 지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해 주시고, 생명 길로 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시옵소서. 우리 섭리사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에 있었듯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친히 전능자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죽음 속에 행하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사로 잡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이제는 모두 성장하고 컸으니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주인이 돼서 일을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신부>로 쳐주지 않고, <주인>으로 쳐주지 않는다.
2.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문제다.
3.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큰 것은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다.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4. 세상만사 상천하지의 모든 것이 건드리면 표가 나고, 건드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
5. 자기가 들 수 있는 돌을 가만 놔두면 천년, 만년이 가도 그대로 있다. 동시에 자기 자신도 돌과 같이 가만히 있느니라.
6. ‘도’를 깨닫는 자, ‘진리’를 깨닫는 자는 <신>이 된다.
7. <절대성의 원칙>을 두고 인생을 따질 때는 행해야 이루어진다.
8. <신>도 행해야 이루어진다. <신>은 영체가 직접 와서 행하지 않고, 마음으로 행한다. 능력이 있어서 생각으로 행해 버린다.
9. 주인이 되어서 해야 <주인 취급>을 해 준다.
10. 회사를 보면 주인이 있고, 하루 수고하고 봉급만 타 가는 사람이 있다. 주인이 되어서 한 사람은 사장과 같이 기업을 일으키고, 같은 주인 역할을 한다.
11. 신앙도 마찬가지로 ‘주인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봉급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인생살이 하는 사람들은 주주가 못 된다.
12.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로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차지했다. 적들이 이미 가지고 있기에 싸워서 뺏어야 했다.
13. <생명 뺏기>다. 자기 생명을 뺏어야 된다. 언제까지 사탄이 자꾸 개입하게 두겠느냐.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못 된 것이다.
14. 사탄의 마음으로 가고, 좌우로 치우치면 ‘적의 세계’로 간다.

15.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사랑문제’로 아직도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미완성적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하늘 편에 서 있는 자만 인정한다.
16. 술 취한 자는 술이 깨서 온전할 때까지는 본정신이 아니라고 본다. ‘좌우로 흔들리는 자’는 술 취한 자와 같다.
17. <자기 생명> 뺏기다! 자기 생명을 확실히 뺏은 자는 좌우로 흔들림이 없다.
18. 절대 흔들리지 말라. 절대성을 가져라. 완전히 뺏어놔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19.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사탄의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사랑도 ‘흔들리는 사랑’은 받지 않는다. 흔들리는 사랑을 받았다가 사탄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20. 썩은 것을 좋은 데에 또는 절대성에 넣을 수 없다. 하늘나라에는 절대적으로 완벽한 영들만 간다. 미완성의 영은 못 간다.
21. 사탄들은 지옥을 그 나름대로 주장하며 자랑한다. 지옥의 영들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며 보람을 느끼며 산다.
22. ‘지옥을 가는 자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며 가니 즐거워하며 간다. 반면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고통을 겪으면서 간다. 모든 것을 고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가기 때문이다.
23. 옛날에 산에서 몸부림치면서 춥고 힘들게 기도하며 보니, <영>이 태양빛이 구멍으로 짝 비취듯 발광체의 빛이 나는 아주 ‘좁은 길’을 홀로 가는 것을 보았다. 반면 많은 자들은 죄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넓은 길’로 가고 있었다.
24. <생명 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참고 견디며 고통을 받으며 가는 것이지, 그냥 쉽게 가지 못한다. 회개도 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끊고, 참고 행하며 가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25. ‘자기’를 뺏기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자기를 뺏기지 말라.
26. 자기가 다루는 ‘생명’을 뺏기지 말라. 한 번 뺏기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사망의 세계에서 살게 된다. 한 번 지옥으로 가고, 한 번 사망으로 가면 영원히 끝난다. 다시는 복직이 없다.
27. 한 번 여자로 태어나면 일생동안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여자로 삶을 살게 되듯이, 구원을 못 받으면 영원히 사망 세계에서 살게 된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다 결정된다.
28. 사람이 싱싱하다가도 기울 때는 순간 기운다. 육신이 싱싱해도 영적인 것이 빠지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
29. 뜨거운 물을 넣어도 금방 식는다. 그러나 하루 종일 끓으면 식지 않는다. 과거에 그렇게 싱싱했던 사람들도 다 죽어나간 것은 자기 스스로 물을 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30. 요즘 사람들은 자극성도 많고, 발달은 됐는데 인생의 근본은 발달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도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아닌데도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31.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아직도 약한 자들이 너무 많다.
32. 흔들리는 것을 사랑해봤자 투자한 것이 다 헛일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33.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역사할 때 확 뒤집어진다.

34. 성령의 역사는 그만큼 조건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를 안 받는 자는 뜻이 없다는 것이다.
35. 모두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를 그리도 강하게 해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했어야 했다.
36. 이는 마치 각자에게 1억씩 준 격과도 같다. 그것으로 계속 장사하고, 밀지는 일을 안 하고, 유익이 되는 일을 계속 했으면 10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되는 역사의 물질세계, 정신세계, 신앙세계, 은혜의 세계가 되었을 것이다.
37. <신앙의 부자>가 되어야 한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잘된다 하였듯이 신앙의 부자가 되면 물질적인 것도 그만큼 돌아온다.
38. <의>를 행하는 만큼 육신이 잘되고 형통한다. 10명을 전도했으면 10명만큼의 의가 있는 것이고, 100명 전도했으면 100명만큼 의가 있다.
39. 성령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진실로 하며 강하게 역사를 해 달라고 해야 된다.
40. 중얼중얼해서는 안 된다.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중얼중얼하고 있으면 답답하다.
41. 기도를 열심히 해야 성령님이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하신다. 자기가 조금밖에 못하면 역사도 조금밖에 못하고, 조금 깨달기밖에 못한다.
42. 성령이 역사하시면 정말로 완전히 달라진다. 뜨겁기만 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43. 자기가 성령을 강하게 붙잡고, 성령께 늘 강하게 대하면 성령도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자기가 성령을 멀리하고 성령에도 관심 없으니 약하게 오신다.
44. 기도할 때 모든 감각이 약하게 오는 것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온다.
45. 소리를 조그마하게 내면 조그만 한 개미 소리가 나온다. 소리를 크게 하면 큰 소리가 나온다.
46.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성령을 강하게 부르짖고, 찾고, 소리 지르고 자꾸 해야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게 일어난다.
47. 늘 신앙에 쫓대를 잡고, 성령 치맛자락 잡고 허리춤을 잡고 다니면 사탄이 손을 못 댈다.
48. 사탄을 가장 괴롭게 하고, 영원히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탄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사탄이 평생 괴로움을 당한다.
49. 사탄이 사람을 꾀고 인도하는 방법이 약 3천억 가지가 있다. 그 방법은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하나님 법칙, 완벽한 법칙으로만 살아야 된다.
50. <기도의 역사>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51. <실천의 역사>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실천의 역사가 일어난다.
52.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풀잎이라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바람이 불지 않고서 풀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느냐.
53.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의 뜻대로 움직인다.

54. 기도는 환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환난 때는 이미 환난의 주관권으로 기운 때다.

55. 구름이 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비를 맞아가며 참아가면서 해야 된다. 날씨 좋을 때는 안 하고, 비가 오고 눈이 올 때에서야 하기 시작하니 성령님이 참으로 답답하시다.

56. 날씨 좋을 때 일을 해야 효과가 크고 많지 않느냐. 그때 일을 많이 했으면 환난 때도 간단하다.

57. 사람들이 날씨가 좋을 때 집을 안 지어놓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겨울이 오고 엄동설한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눈이 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기울어서 겨울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때는 참고 견디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58. <성령의 불>을 붙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불을 붙여라.

59. 사랑도, 실천도, 기도도, 말씀도 식으면 안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의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뜨겁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들다.” 했습니다. 모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전국 교회들은 속기도 하지 말고, 새벽에 나오면 정말로 산 천초목을 울리는 기도를 하고, 슬픈 기도도, 눈물의 기도도, 그리고 가슴이 졸이는 기도도 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나도 기도할 테니 모두 기도하자.”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잘 될 때인데 기도하고 열심히 하자. 사탄을 멸하고 신부로서 완벽한 신부의 사명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지런히 전도도 하고 많은 생명들을 이끌어 오도록 하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매일 전도할 수 있다. 근데 1년 가도 전도도 하나 못 하고 2년 가도 못 하니 이게 사람이냐. 섭리의 네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받기도 힘들다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시킨 사람은 반드시 남을 구원시키는 능력과 권세를 부린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그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를 안 하면, 영체인 하나님도 성령님도 실감하지 못한다.

2. 영의 세계는 ‘오직 기도’로만 깨달아 알게 된다.

3. <기도의 능력>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의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4. <기도> 없이 ‘말씀’만 들으면, 확신이 없다.

5. <기도>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야기하는 일이다. 대화하는 일이다. 응답 받는 일이다. 고로 더욱 ‘확신’하게 된다.

6. <기도>는 깨닫게 해 준다.

7. <기도>는 ‘사탄’을 멸하게 한다.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한다.

8.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기도해라. 진정 깊이 해라.

9. <자기 기도>는 ‘자기’가 해야 된다.

10.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자.

11. 기도도 안 해 버릇 하면, 할 줄 모른다.

12. 앞으로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자.
13. 매일 정해 놓고 기도다. 새벽 때, 점심 때, 저녁 때 정해 놓고 기도다.
14. 영과 혼과 육이 더욱 깨끗해지고, 빛이 나게 하고, 더욱 근신하며 행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15. 기도해야 <자기라는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성장하여 '철 기둥' 같이 튼튼해진다.
16. <사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사람'을 조심해라.
17.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해라. <성령>과 일체 되어 살아라.
18. 항상 <약한 지체>로 인해 '건강한 다른 지체들'도 고통 받게 되듯이, <약한 자>로 인해 '전체'가 고통 받게 되고, 문제도 일어나게 된다.
19. <약한 자>를 가르치고 튼튼하게 해 줘라. <신앙의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어린 자들'은 문제가 된다.
20. 이제 온 신앙인들을 매일 관리하며 키워 줘라.
21. 주를 '눈으로 보고 믿기'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크다.
22. <신령한 눈>으로 보아라.
23. 기도는 '섭리사 전체가 할 때 모두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잘되고, 기도로 자기의 문제와 섭리사의 문제가 잘 해결된다.
24. 기도하면, 상황을 '꿈'으로도 보여 주고 '만물'로도 보여 준다.
25. 늘 성령께 물어 봐라.
26. <기도>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
27. <죄를 회개>해야 '사탄'이 떠나가고 멀해진다.
28. <기도>해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다.
29. <기도>해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극히 담대하게 된다.
30. <쉬지 않는 기도>다. <응답 받는 기도>다.

<2019년 4월 5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극히 너는 담대하라.” 고 말씀하셨다.
2. 극히 위대하고, 극히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극적으로 더 이상 없이 담대하라.
3.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 사람이 함께할 때는 극적으로는 담대할 수 없느니라.

4. ‘사탄’에게 특히 담대해야 된다. 사탄은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 최고, 자기 생각 최고, 자기 사상 최고, 자기가 한 일이 최고로 옳다고 하니, 사탄의 주관을 받지 말고 사탄에게는 아무것도 믿어주지 말라.
5. ‘너와 싸우는 자’에게 담대하라.
6. 여호수아는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영원히 찾고 영원히 사는 싸움을 했다. 자기가 먹고 사는 삶의 생계가 달린 문제였다. ‘자기 것’을 가지고 싸우니 담대하게 싸우라는 것이다.
7. 사탄은 항상 자기 것이라 한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하나님까지 불신했다.
8.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아들급만 되어도 사탄을 이기고,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만 되어도 천국의 천사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다.
9.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사탄을 내쫓고 주관할 수 있다. 아들은 ‘주인 입장’이니 싸워서 충분히 이긴다. 그러나 구약은 종들이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10. <사탄>은 ‘불신의 영’이요, ‘불법의 영’이다. 하나도 옳은 말을 하지 않고, 옳은 짓을 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하고, 불신으로만 가고, 부정으로만 간다.
11. 도둑이 도둑질하고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주인을 부르면 기록에 주인의 것이라고 나와 있으나, 도둑은 자기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이와 같이 사탄은 근거가 없다.
12.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니 가서 싸워서 너희가 차지하고 싸워라.” 하셨다. 그 땅은 본래 조상들의 땅이었다. ‘자기 땅’ 놓고 싸우는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이다.
13. 여행을 다녀오니 도둑놈들이 빈 집을 차지하고 살림을 꾸려놓고 있는 격이다. 그들과 싸우는데 못 이기면 안 된다.
14. 오랜 역사, 4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싸움만 잘하면 엄청나게 이익이다. 400년 동안 땅을 부쳐 먹은 것까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15.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며 순리로 대하니 결국 여리고성이 두려워서 무너졌다.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이 포기했다는 것이다.
16. 여리고성에 본부를 만들어놓고 거기서부터 또 싸우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한꺼번에 많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군데씩 싸우며 이겨나갔다.
17. 섭리역사도 1999년도 이후로 싸움을 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합세해서 싸웠다. 기성과 나간 자들이 합세해서 싸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를 무너뜨리고, 깨버리고 하는 일을 20년 동안 해 오셨다.
18. 이 시대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싸울 때 아무 근거도 없이 하는 그들의 세계에 담대히 가서 법적으로 싸울 것은 법적으로 싸우고, 입으로 싸울 것은 입으로 싸우면서 40년의 역사를 매듭짓고 휴거 역사까지 이루어왔다.
19. 그들의 사고는 ‘사탄 세계’의 주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난 자들’의 주관이다.
20. 결국 하나님의 세계를 차지하고 말았고, 또 부활의 역사를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사탄의 세계는 여전히 자기 것이라 한다.
21. 하나님은 영원히 사탄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탄과 싸워서 이겨도 사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항상 싸워서

이겨라.

22. 지금 ‘당세’ 우리 것이 아니라면 ‘선조 때’ 우리 것이었다. 이 두 가지로 보고 하면 된다.

23.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가게 되어 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가는 나라에 못 갔다.

24. 무조건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나 확인하고도 흔들리는 자들이 너무 많다.

25. 믿고 흔들릴 때는 주를 보고도 흔들리고, 옆 사람 보고도 흔들리고, 서로 다투다 흔들리고, 서로 별의 별 것으로 흔들린다. 그 어떤 것도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26. 별 것도 아닌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뺏기는 사람들이 있다. 심리, 정신, 사고가 너무 빈약하고, 너무나도 가냘프고, 불쌍한 믿음이 들어간 자들이다.

27. 선생은 9세 때 신앙생활을 하고서 한 번도 신앙을 멈춘 일이 없다. 극히 어려웠을 때도 다녔고, 가난했을 때도 다녔고, 먹을 것이 없어서 70일 동안 못 먹었어도 몸부림치며 믿었고, 갖은 환난과 갖은 어려움이 있어도 믿었다.

28. 요즘 사람들은 겉은 멋있고 아름다운데, 성질머리가 못돼서 사망으로 간다. 욕하고, 악하고, 마음이 선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가인의 성격을 가져서다.

29. 하수돗물, 배설물, 모든 썩는 물, 냄새나는 물을 ‘더럽다’고 표현한다. 냄새나니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

30. ‘자기 것’으로 싸우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싸워라.

31. <담대함>을 항상 가지고 살아라. 담대성은 심리적으로 한 번 놀리면 계속 놀린다.

32.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은 전체와 같이 한 몸이 될 때 심리적인 위축감이 없어지고, 마음이 든든해진다.

33. 선생은 담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셨다. - 첫째는 대둔산에서 비를 맞으며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지나며 모든 환경의 어려움을 견디며 연단되어 담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 많은 사탄, 귀신, 악령과 싸워서 이기며 담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 환경, 어려움, 배고픔, 굶주림과 놀림 속에서 능률한 모습으로 담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다. - 전쟁터 최고의 적전 속에서 담대성을 익히고, 적이 총을 쏘도 담대히 쫓아가며 담대성을 가지게 되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담대했다.

34. 지도자가 되면 항상 ‘싸울 일’이다. 아무리 싸우고 이겨도 싸움의 세계가 또 생긴다.

35. 농사를 지으면 잡초와 싸우고, 장사를 하면 잡놈과 싸우고, 정치를 하면 정치 대상과 싸운다. 섭리 안에서도 어려움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악평자와 싸움이다.

36.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서 공의롭게, 의롭게, 사랑으로 싸우고 나가야 한다.

37. 섭리 안에서는 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잠깐 잠깐 마귀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있으니 잘 이해하고, 잡아주며, 싸워라.

38. 시간이 지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돌아오고,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한데서 돌아오며, 순간순간 비정상적인 짓을 하는 사람도 돌아온다.

39. '일'에 담대하라.

40. '입장, 체면' 두고 담대 하라. 입장 때문에 할 말을 못 하고, 나아가 담대치 못하면 안 된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으니, 말씀을 모두가 행하게 해 주시고, 여러 말이 필요 없이 기도하고 모두 행하라고 했는데, 절대 믿음의 문제와, 그리고 절대적으로 행할 것을 행하면서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모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살라고 했으니 그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하고 영원할 지어다. 아멘.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서 '뜻'을 주어 행하게 하시니, 기필코 이기도록 담대해라.
2. 이겨야,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 가서 자랑한다.
3. 담력이 있고 담대해야 심장병에 안 걸린다.
4. <주>는 '담대'하다.
5. <주>와 같이 '극히 담대'하자. 담대하기만 해도 이긴다.
6. 아얄론 골짜기 전투에서 아모리 족속이 합동으로 와서 싸웠어도 여호수아 군대는 담대히 싸워 이겼다. 결국 하나님께서 6~7kg의 우박을 내리시어, 아모리 족속의 군사들을 멸하셨다.
7.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군대에게 우박을 내려 멸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평생의 적들을 '그때마다 합당한 것'으로 쳐서, '주와 싸우는 악한 자들'을 멸하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우리 편'이 되어 적과 악인들을 멸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끝까지 담대히 싸워 이겨라!
9. <담력>과 <담대>는 '인생의 무기'다. 담대하면 심장병이나 기타 신경성 병에 안 걸리니, 건강에도 그리 좋다.
10. 담대하지 않으면 몸도 약해진다. 신경성 노이로제가 생기고, 걱정과 근심의 병이 생기고, 혈액 순환도 잘 안 된다.
11. <담대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다.
12. 선생도 담대하지 않고 담력이 없었으면, 어린 15세 때부터 20년 가까이 대둔산에서 산(山)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다.
13. 산에서 기도할 때, 호랑이가 나를 끌어안고 물려고 했어도 담대함으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다. 기어이 <성경의 인봉>을 떼서 '하나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었다.
14. <담대한 자>가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얻는다.
15. <담대한 자>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과 '휴거의 뜻'을 이룬다.

<2019년 4월 8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서 <만물>로 계시하실 때는 '구름'으로 가장 많이 계시하신다. 특히 <구름>이 '각종 형상'을 잘 만들기 때

문이다. <이미 만들어진 형상>을 가지고 “저 구름은 성령님 같다.”, “저 구름은 독수리 같다.”, “저 구름은 누구를 상징한 것이다.” 하고 감동을 주어 계시하며 깨닫게 하신다. 어느 때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목적하신 형상>을 ‘구름’으로 만들어서 계시하신다. <높은 구름>은 고기압권에 있기 때문에 ‘형상’이 순간 사라진다. 고로 빨리 보고 깨달아야 하니, 순간 생각나게 하신다.

2. <구름 계시>로 ‘아주 보기 드문 형상’이 보일 때가 있다. 특별히 그 형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목적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

3. <노을>은 찬란하고 예쁘다. 고로 ‘성령님’을 상징할 때 많이 보이신다. 고로 <노을>을 보이며 “성령님이 네 옆에 계신다.”, “성령님은 저같이 아름답게 존재하신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등으로 계시하신다.

4. 이미 성경을 통해 배운 대로 <동방의 독수리>는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러나 어느 때는 <독수리 형상의 구름>을 보이며 ‘메시아’를 계시하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나타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계시하기도 하신다.

5.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만물’로 계시하신다.

6. 어느 때는 ‘미완성된 존재물’로 ‘미완성된 것’을 계시하기도 하신다.

7. <계시 받는 자>가 이해만 한다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계시하신다.

8. 하나님은 ‘차원’에 따라 계시하신다. 가령 어떤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와 같으시다.”라고 계시하시는데, 어떤 자에게는 그렇게 계시하지 않으신다.

9. 하나님은 ‘만물’로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실체>를 ‘글’로 보이신다.

10.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만물>을 보고, ‘글 읽듯이’ 읽으면 된다.

11. <계시를 깨닫는 자>는 ‘만물’을 보며, ‘글’처럼 계시를 읽는다.

12. <만물 계시>도 공부해야 ‘만물 계시의 글’을 그때마다 순간순간 읽게 된다.

13. <만물 계시>를 전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야 ‘만물의 계시’를 잘 받는다.

14.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하여 ‘만물’로 계시하신다.

15.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이며 계시해 주시고, <꿈>을 통해 ‘영계’를 보이며 계시해 주신다.

16.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자기가 <직접> 깨닫게 하기도 하신다.

17. <계시>를 받으려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늘 대화’다. ‘간절한 기도’다.

18. <기도>는 ‘주체와 상대의 대화’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할 일이 생각나게 해 주시고, 돕고 함께 행해 주신다.

19.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시를 주시면, 확실하게 깨닫고 반응을 보이며 행하여라.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멀면 계시를 주셔도 희미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함께 행해도 모른다.

21. <계시를 받을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지,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인지 잘 분별하고 받아야 된다.
22. 계시에 지나치게 치우치면, 모든 것이 다 계시라고 지나치게 생각하게 된다.
23.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별하듯이, '계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24. <성령과 주와 일체> 되면, '분별'하게 된다.
25.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획하고 행하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 늘 감사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26.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7. 사람은 확인해 봤을 때 그제야 알지만, 하나님과 성령님은 아예 확인하고 택해 주셨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무엇을 해 주시면, 그것을 쓰면서 '감사 감격'과 '반응'이 늘 충만해야 된다.
29. <신앙의 잠을 자는 자>에게 성령과 주가 그동안 얼마나 할 말이 많았는지, 정말 모른다.
30. <잠을 자던 자>가 잠에서 깨면, 그때부터 '할 일'이 생기고 '역사'가 시작된다. <신앙의 잠을 자던 자>도 그러하다.
31. 성령께서 네게 하실 말씀이 많다. 그러나 네가 집중하지 않으니, 그동안 할 말을 못 하시고, 때마다 지나가셨다. 집중해라!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언>

1. 생각을 잘해야 '좋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신에게도 좋은 생각이 자꾸 솟아난다. 생각을 잘못하면 ' 좋지 않은 생각'으로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다.
2. <뇌의 구조>도 모르면서 뇌를 사용한다면 늘 착각할 것이다. <뇌의 구조>를 알고 사용할 때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유익하게 된다.
3. 모든 존재물을 보면, '구조'를 알아야 된다.
4.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산다. 그래서 무미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니 고장도 잘 내고, 잘 써먹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른다.
5. <뇌>는 '생각하는 대로' 계속 발달된다. 생각을 안 하면 발달이 하나도 안 된다.
6. 하나님께서 뇌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 두신 것도 있지만, 발달의 세계는 자기가 자꾸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된다. 무(無)에서 시작하는 입장이다.
7. 배우면 손으로 수백만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나 안 배우면 기본적인 것도 많이 못 한다.
8. <뇌>는 '생각'으로 발달된다. 자꾸 생각을 좋게 하고, 생각으로 키우고, 생각으로 만지는 것이다.
9. 극적으로 영적세계에서 뇌 연구를 하면 무한 뇌를 발달시킬 수 있다.
10. <뇌>가 발달돼야 '입'도 발달돼서 제대로 말하고, '손'도 발달되고, '몸'도 발달되어 수만 가지, 수억 가지를 할 수

있다.

11. 저마다 뇌가 있으니 뇌를 자꾸 발달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놀리지 말고, 생각으로 뇌를 만지고 뇌를 발달시켜라.

12.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으니 “별은 별 볼 일 없다. 집 천장에 번뜩번뜩하게 장식해 놓은 장식품에 불과하다.” 하셨다.

13. <사용할 때> 신비하다. 눈이나 뇌나, 기계나 발라보고 까봤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사용하면 수천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로 신기하게 사용된다.

14. <뇌>는 ‘느낌’으로 안다. 이것이 숙달되면 파장이 가서 안 보고도 알게 된다. 뇌가 ‘흔’과 같이 하면 멀리까지도 감각을 느낀다.

15. 뇌는 자꾸 생각을 하는 대로 발달된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성으로 계속 발달되고, 세상 육적인 것으로 발달시키면 육적인 것으로 발달된다. 생각으로 딱 잡으면 잡힌다.

16. 마지막 전쟁은 ‘말 전쟁, 도(道) 전쟁’이다. <생각의 강자>가 이기는 전쟁이다. 그런 시대가 온지도 모르고 무기로만 하려고 하면 깨진다.

17. 마지막은 하나님이 ‘생각의 전쟁’으로, ‘영적 전쟁’으로 간다. 생각은 영에 속한 것이니 정신적 전쟁이다.

18. <정신적 전쟁>은 ‘정신이 강한 자, 생각이 강한 자’가 이긴다.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기고, 생각이 약한 자는 진다.

19. ‘생각’이 온전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전능자의 생각>, <주님의 생각>이어야 된다.

20. ‘자기 생각’은 아무리 옳은 것을 가지고 따져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니라.

21. 지금은 ‘생각의 아이디어 시대’다. 옛날에는 힘이 좋은 자가 이겼지만, 지금은 힘이 약해도 생각이 발달된 자들이 승리하는 시대다.

22. 생각이 잘못 발달되면 잘못된 생각으로 망해버린다.

23.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으로 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가 세상을 잡고 가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24. 생각을 잘 하려면, <절대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

25.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 계시하는 생각을 잘 알고 배워야 한다. 신앙이 낮은 자, 안 믿는 자, 영적이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빨리 지시하기 좋은 것이 <자연 계시>다.

26. 자연계시는 특별계시 다음에 있다. <특별계시>는 직접 말하는 것, 말씀으로 전하는 것, 직접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성령으로 감동시키는 것, 누가 듣고 와서 바로 전하는 것이다.

27. 하나님의 언어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엄청난 표현이 있다.

28.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순간 약 100만분의 1초에서 지나간다. 마치 팬텀기가 칼날 위로 쭉 지나가듯 빨리 지나간다.

29.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된다. 지난날이나 지금 자기의 위치를 보고 감사의 생각을 하라.
30. 기도를 한 대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 주신다. 뇌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31.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도와주게 하여라.” 하셨다. 이는 본인이 뛰고 달리면서 잘함으로 사랑해서, 좋아서 도와주게 하라는 것이다.
32. 어떤 사람은 인사치레로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도와줄 수밖에 없고, 약해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들어서 잡아당겨 주고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의 ‘구원의 역사’다.
33. ‘묵도, 명상 기도’ 하지 마라. 가만히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명상적 기도다. ‘명상과 묵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자기 정신적 수련에 속한 것들이다.
34. 기도는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하게, 분명하게 왕 앞에 보고하듯이 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는 말이니라.
35.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면서 기도를 하여라.
36.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37.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서 만들 때는 목숨을 걸어놓고 빠져서 미쳐서 해 놓는다. 그러다가 서서히 해가 서산에 기울듯이 기울어진다. 그것이 인간의 ‘뇌의 구조요, 현상이요, 생각들’이다.
38. 물건도 제일 처음에 좋아서 막 사다놓고서는 관리를 안 해서 썩고 판이 식어버린다. 그러려면 사지 않는 것이 좋다.
39. 사람은 처음에 좋아서 사랑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살다가도 가다가 이유를 달고 점점 멀어진다. 그것이 ‘인생들의 한계’다.
40.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모르니 귀히 보다가 후에 알고 보니 별것도 아니라 멀리 하는 것도 있다.
41. 매일 닦고 깎고 빛이 나게 하여라. 차원을 높여라. <정신 빛>이 나야 된다. <생각 빛>이 나야 된다.
42. 성장하고 키워서 연구하며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살지 않으면 ‘보편성 생각’으로 인생을 살다 끝난다.
43. 생각을 닦고 청명하게 온전하게 해 보아라. 생각을 세우고 하면 별의 별것들을 다 얻게 되리라.
44.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성장되어야 제때 제대로 제 일을 하게 된다. 나이만 먹었다고 큰일 하는 것이 아니다.
45. 생각 따라 좌우된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님, 주님이시다. 일체 되어 같이 행해 보아라.
46. 생각이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쓰여 진다. 생각을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제대로 하지 않고 살아가면 제정신으로 못 산다.
47.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고 각종 일들이 화재처럼 일어나게 하신다. 누가 공격하고 쫓아오니, 쫓는 자의 집에 불나게 해서 불 끄느라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결국 그 쫓음이 사라지게 하는 격이다.
48. 운동할 때 이기면 스릴이 있다. 매사가 그러하고,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모두 그러하다. 기도해 주고 돕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49. 아무리 좋은 것도 그때 안 하고 시간이 가면 안 해진다. 순간 생각났을 때 바로 해버려야 된다. 그때 지나가면 헛 일이다.

50.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영의 세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 뇌를 보면 완전히 시커멓다.

51. 아기가 ‘태 안의 세상’만 생각하고 아등바등 하는 격이다. 그러나 ‘태 바깥세상’에 나오면 태 안에서 사는 것보다 수십 억만 배가 좋은 엄청난 세계가 있다.

52. 인생도 완성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53. 사람도 익을 때 확 익고, 신앙도 익을 때 확 익고, 기도할 때 깊이 하고, 말씀을 전할 때 확실히 전해야 된다. 그때를 벗어나면 설익어버린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기간 때, 기도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야만 제대로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데리고 와도 독수리 발톱에, 독수리 부리로 딱딱 찍어 놓고 끊어 놓아야 갈피가 잡히게 되니, 내 손이 가야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갈썩갈썩으로 끝나고 마니, 내가 손을 대어 기도합니다. 이들이 말씀 듣고 뇌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생각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뇌가, 생각이 잘못 되면 자꾸 흑암으로 가지는 행실이 된다. 딱 잘라버리고 완벽하게 하라. 하나님의 검으로 모두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니 온전케 되라. 그렇지 못하면 육적으로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못 받게 되고, 주의 사랑도 못 받게 된다. 운명이 다른 길로 가 버린다.”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을 튼튼케 지켜 주시고 은혜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두 알아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의 큰 능력과 권능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쪽>으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대화하여라.

2. <귀한 것>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고 만다.

3. 자꾸 <그물질>을 해야 ‘좋은 고기’가 잡히듯이, 자꾸 <생각>을 해야만 ‘좋은 생각’이 난다.

4. <물건>도 잘 만들려고 해야 잘 만들어지듯이, <생각>도 깊이 하려고 해야만 깊이 해진다.

5.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가 오듯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기도한 것’도 이루어지고, 또 ‘시험들 일’도 온다. 고로 <좋은 쪽>도 <나쁜 쪽>도 미리 생각해라.

6. <눈>으로 무엇을 볼 때, 깊이 자세히 봐야 자세하게 보게 된다. <생각>도 깊이 자세히 해야 자세하게 생각하게 된다.

7. <생각의 눈>이다. <생각의 눈>으로 생각하며 보아라. 그러면 ‘육으로 못 보던 것’도 보게 되고, ‘천 리나 떨어진 것’도 생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실체’가 보인다. <신령한 생각의 눈>으로 ‘환상’과 ‘영계의 것들’이 보인다.

8.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발달되어, 생각이 발달된 만큼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

9.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발달되어 ‘뇌의 생각과 마음’을 좌우한다.

10.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듯이, <뇌>도 생각하는 대로 <전체>가 자극된다.

11. 생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에 대해 연구해라.
12. <자기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의’인지 ‘불의’인지 깨닫고, <자기가 자주 생각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깨달아라. <좋은 것>이면 연속하고, <나쁜 것>이면 끊고 잘라라.
13. <생각>이 살아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생각하는 대로’ 노래도 잘되고, 가끔씩 하는 운동도 연습 없이 잘하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잠언도 잘 받아서 쓴다.
14. <생각>을 부활시켜, 온전히 생각하여라.
15. <생각>이 둔하면, 몸 고생을 많이 한다.
16. 하나님은 늘 ‘네 생각’을 감찰하신다.
17. 음식의 맛보다, 이성의 맛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 <생각의 맛>이 최고다. <생각>은 뇌를 가장 흥분시킬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게 하고, 육신 일생동안 누리게 하고, 영까지 영원히 누리게 한다.
18. <생각>을 발달시키면, 모두 주같이 잘하게 된다.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똑같은 사람이라도 ‘자세’와 ‘행동’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2.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와 몸>을 창조하실 때, 저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능은 충분히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개발하는 대로 더 이상적으로 잘되게 해 주셨다.
3. 하나님께서 돕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나와 같이 사랑하자.” 하심이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하면, 축복을 뺏긴다.
4.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는 자들>은 ‘생각’이 한계에 처하게 되고 ‘행함’도 한계에 처해서, 더이상 행하지 못하게 된다.
5. 하나님은 ‘생각’을 보고 축복하고 도우신다.
6. 생각을 잘못하고 행하거나 모르고 행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을 받게 된다.
7. <생각>을 온전하게 해야 성공한다.
8. <사람의 차원의 차이>는 ‘생각 차이’다.
9. <생각>을 잘하고 행하면, 아주 차이가 나게 좋아진다.
10.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보통으로 하고 행하면, ‘해 놓은 것’도 보통으로 되고 ‘그로 인한 유익’도 보통이다.
11.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잘 먹고 행해야 제대로 행해서, 온전하고 빛이 나게 해 놓게 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으로 해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써야 최고로 이상적이다.
13.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는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가 하는 일’을 모르고, 이해도 못 한 채 수년, 수십 년씩 세월

을 보낸다.

14. 생각을 잘하고 행했어도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15. 생각할 때 정신 차리고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행하면, 매시간, 매순간 ‘별의별 좋은 생각’을 하게 된다.

16.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각종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행하여라.

17. <악한 자와 악평자들>은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릇된 생각들’을 하며 행한다. 고로 스스로 행한 대로 심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를 심판받게 된다.

18. <악에 속한 자들>은 매일 ‘악’으로 심판받게 된다. 또는 ‘악’을 쌓아 놓았다가, 어느 날 죄악이 관영됐을 때 심판받기도 한다.

19. <생각 잘하기 기간>에 모두 생각을 잘하도록 고치고, 정신 차리고 행하여라.

20. 그 일이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절대 성령께 묻고 행하여라.

21. 물건을 살 때도 과대광고에 속아 비싸게 사지 않도록, 생각을 잘하고 사라.

22. 게으른 사람은 집에서 편하게 홈쇼핑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다가 손해를 많이 본다. 시장에 가면, 헐하면서도 괜찮은 물건들이 많다.

23.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가장 특이한 옷을 만 원에 샀는데, 백화점에서는 그 옷을 10만 원에 팔고 있었다. 고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24. 백화점 물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백화점 물건만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비싸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것들도 많다.

25. <생각의 축복을 받은 자>만 물건도 제대로 산다.

26. 어떤 사람은 만 원짜리를 5만 원, 7만 원에 산다. 고로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의 차이’다.

27. 돈을 잘 벌어도 ‘쓰는 지혜’가 없으면, 돈을 조금 번 사람만도 못 하게 입고 먹고 해 놓고 산다.

28. <지혜>는 ‘좋은 생각의 판단’이다.

29. 모르면, 억울하게 바가지를 쓰고 살아간다.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

1.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2. 악한 자들은 ‘악한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3.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주의 생각>은 높으니라. 악한 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해도 못 산 사람들,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다르니 나를 떠나지 말고 백 번, 천 번 계속 기어올라 내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땅보다 하늘이 높음같이 높은 생각이니라.”

4. 모든 악한 마음도, 잘못된 생각도,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러면 너희 잘못을 다 용서해 주고 긍휼히 여기시리라.
5.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정녕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번 선포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녕코 하신다.
6.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이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있다가 정녕코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만에 돌아왔다.
8. 하나님은 정녕코 이루셨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대로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서 정녕코 행하셨고, “구름타고 와서 행한다.” 하신대로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청중 구름을 타고 행하셨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성서의 말씀들도 비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부딪힘같이 결국 100% 다 이루어졌다.
9. 섭리역사도 40년 동안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을지라도 이를 것을 정녕코 다 이루었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10. ‘사탄이 배치하여 보낸 자’를 아예 멀리하여라.
11. 육적으로 북한에서 간첩들을 한국에 배치해서 정보도 받고 일을 저지르게도 하듯, 영적으로도 사탄이 영을 교육시켜서 배치하여 보내니, ‘사탄의 꼬임 받고 주관 받는 자들’을 아예 멀리 하여라.
12. ‘사탄이 꼬여서 그 몸이 되어 오는 자’가 있다. 조심하라.
13. 사탄은 ‘영체’와 ‘육체’를 쓰고 온다. 사탄은 영체이므로 육체를 꼭 쓰고 행한다. 직접 행할 때는 자기 몸을 쓰고 직접 행하고, 자기를 해하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쓰고 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
14. <아예 흠도 없이 의롭게 행하는 것>이 사탄과 악에서 벗어나는 세계다.
15. 너희는 하나님 앞에 행하니만큼 100% 온전하게 행하여라.
16. 여호와와 성령께 ‘영원한 선물’은 모든 자들이 흠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니라.
17. 완전하게 역사를 남기자.
18. <성령>은 우리의 신랑이시다. <하나님>도 우리의 신랑이시다. 그러나 ‘전능자로서 사랑의 대상자’이지, 이성으로 보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시다.
19.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 아가페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라.
20. <성령의 사랑>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로 하는 사랑이기에 육체와 육체의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다. ‘정신적인 세계, 영과 영의 세계의 사랑’이다.
21. 남녀 사랑은 불같이 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망연한 사랑으로 하면 안 된다.
22. 우리 영체가 하나님과 성령, 전능하신 자를 위하며 섬기며 절대시하고 좋아하며 사랑하는 사랑을 깨달아라.

23. 온전하게 행하는 육신의 행위만이 그 혼도, 마음도, 영까지 같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24. 무엇을 만들든지 온전하게 세밀하게 만들면 온전하게 되어 있고, 세밀하게 안 만들면 세밀하게 안 되어 있다.
25. ‘영’을 만드는 것도, ‘혼’을 만드는 것도, ‘육체’를 만드는 것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든 것만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표가 나게 다르다.
26. <온전성>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온전성이 완전하다. 인간이 생각하는 온전성은 온전하지 못하다.
27. <온전한 자>에게는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임하여 역사를 한다. 온전하게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28. 모든 건물을 다 짓고도 전기 배선에 연결이 다 안 되면 부분적으로만 불이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올 것이다. 이와 같이 완전하게 100% 한 것만 존재한다.
29. 할 일을 놓고도 다 행치 않은 것은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지 않으신다.
30. 어떤 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다. 완전히 다 해 놓은 것만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
31. 신앙도 지금 만드는 자는 아직 온전치 못한 자다. 그러니 자기를 중심하지 말고, 자기 생각 하지 말라.
32. <온전한 자>는 ‘온전함’을 항상 나타낼 수 있다.
33. ‘자기가 온전하게 못하는 것’은 아직 완성을 못 한 자라는 것이다. 아직도 미완성이니 자꾸 실수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고, 안 된다. 완성되면 온전한 것만 계속 한다.
34. 자기를 아직도 못 만든 것은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이니 그 사고나 생각을 중심하면 틀린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온전히 만든 것은 그대로 말해도 온전히 맞는 것이다.
35. 만사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한 것만이 제대로 끝이 난 것으로 본다. 온전히 만들지 않고서는 제대로 끝났다고 안 본다.
36. 10년 동안 건물을 만들었는데 지붕을 안 했으면 온전한 건물이 못 되고 결국 가만 두면 무너진다. 그러니 <완성>을 꼭 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온전하게 완성을 기필코 하면 할 수 있다.
37. 온전할 때 사탄도 인(人)사탄도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산다.
38.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다. 육신의 존재체는 부족하게 만든 것 없이 100%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영적세계도, 육적세계’도 충분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39.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에게 톱도 주고, 도끼도 주고, 집을 짓는데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주었다. ‘사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다.
40. 완전하게 행하면 사고도 안 난다. 누구든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행해야 된다.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평생을 해도 못 한다.
41. 완전하게 못 하면 그 영도 완전한 영이 못 되어 완전치 못한 주관권의 세계로 간다.
42. 온전히 행하면 ‘법’이 상관없다. 비행기는 나무에 부딪힐 걱정이 없고, 차에 부딪힐 걱정이 없다. 이와 같이 ‘온전’

이라는 세계에 떠서 살면 아무 상관이 없다.

43. 저마다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악의 행위와 악의 생각’을 죽여라.

44. <생각>은 생각하는 대로 가진다. 생각을 나쁘게 하지 말고 생각을 좋게 계속 하라.

45. 생각을 더 차원 높게 해서 행해버리면 기둥을 세우고 완성한 격이 된다. 행하지 않으면 ‘계획’에 불과하다. 머릿속에 계획한 것은 안 하면 없어져버린다. 생각을 행했을 때 완성된 것이다.

46.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그 욕의 행실을 따라 그 혼이 욕에 갇히고, 욕에까지 가서 살게 된다. ‘범죄한 자들은 죽으리라.’ 하였듯이 죄를 범한 혼도 그러하다.

47. 욕신은 멀쩡히 돌아다녀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은 자’는 바로 욕에 갇혀있다. 욕신이 깨닫고 회개하면 값을 치르고 나오게 된다.

48. 완성을 이루고 휴거된 ‘영’들은 대부분 하늘나라에 가 있고, 지상에는 ‘욕’과 ‘혼’이 남아있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욕과 혼은 완성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49. 기도하여 혼이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보아라.

50. 기도할 때는 기도를 정말로 깊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가져가지도 않고, 상달이 안 된다. 자기의 기도로 끝나게 된다.

51. 3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한 명은 자기 일을 완성하고 떠나버렸고, 두 명은 아직 일을 하며 사는데 하나가 실수하니 그 대가로 욕에 갇히듯 혼이 혼의 세계에 갇히는 입장이다. 영은 해당이 안 되니 갈 필요가 없다.

52. 집을 지을 때나 작품을 만들 때는 완성한 것은 실수할 일이 없다. 써먹기만 하면 된다.

53. <완전한 영>은 휴거되어 황금천국으로 갔으니, 혼의 차원 같이 욕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해당이 안 된다. 그러나 그 영이 ‘혼의 차원에 해당되는 영’이면 영의 법에 의해서 같이 영계의 욕으로 가게 된다.

54. 생활과 삶에 흠이 없이 살아라. 이것이 귀하다.

55. 전지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하시니 두려워말고 걱정하지 말고 섭리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56. <최고 지도자>가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제일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 섭리를 끌고 가는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히 극적으로 기도하라.

57. 전쟁에서 지도자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한다. 지도자가 제일 많이 고통을 받고 제일 많은 어려움을 받는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체가 살아난다.

58. 흑암이 물러가게, 사탄이 물러가게,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그 마음과 정신에 온전한 정신을 갖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여라.

59. 엄마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기가 젖을 못 먹는다.

60. 매일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 ‘의’가 없기 때문이다.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 <주>가 용서해 주신다.

61. 전체는 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안 하면 하늘과 가물가물 멀어진다.

62. 누구든지 멀리 있으면 대화가 안 된다. <대화를 하는 자>는 그만큼 가까이 있다. 그러나 <기도를 잊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격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른다. ◎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들에게 말씀을 줘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안 하는 자는 자꾸 자기 영이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 혼이 사망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자들 많습시다. “보통 기도해서 될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인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축구할 때 보통 해서는 못 이긴다. 한 볼 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와 같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응답 안 된 것은 했어도 그냥 무로 없어지는 것이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응답 되게 완벽하게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섭리사 전체에게 기도하는 제목도 주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그런 기도를 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완전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자기 생각이 온전하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얼버무려가며 기도하는데 안 된다 했습니다. 자기 교회를 맡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고 쫓아다니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섭리의 지도자, 섭리핵심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는 자는 역시 자기 신앙도 살아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가깝고 주와 가까이 있다. 육신은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는 대화니 심오한 대화를 하라. 깊은 대화를 하라. 심정 어린 대화를 하라. 그래야 듣고서 이루어 준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께 이렇게 기도하오니, 그런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섬기는 자들, 하나님! 모두 돌이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가 안 됩니다. 그들에게 곤고하게 해서 하나님께 향하여 오는 자들이 온 세계에 무한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감동시키면 뒤집어지니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지 못할 자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주니 육신이 한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리하게 해 주시고, 민족의 모든 소란함, 민족의 국방문제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모두 잘 되다 안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기도를 하라. 그냥 되는 것이 어디 있냐? 너희가 기도를 해 줘야지. 기도해서 내 마음이 돌아가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국방문제를 잘 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다 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말아라.”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너희들이 책임을 못 하면 그것이 허사로 또 돌아간다. 하나님 축복한 것도 축복을 받을 그릇이 없으면 못 받는 거다.”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섭리의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 사탄도 흑암도 마귀도 막 대들고 반대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각 센터마다 그런 일을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증거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같이 증거자를 사탄들이 쫓아다니며 막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증거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세력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멀하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어린아이는 늘 구원만 받으려고 하지 하나님께 기도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실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되도록 해 주시고, 섭리의 모든 자들이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면 안 됩니다. 기도 못 하면 자기 영이 죽는 거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자기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폐하게 된다 했습니다. 나의 전은 기도하는 전이라 했는데, 이 전에 와서 말씀만 듣고 슬쩍 가고, 나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자연성전에 와서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냥 가니까 이들의 모든 상태가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요. 가서 기도하는 자가 지금 없습니다. 자연성전에서 기도하라! 일하러 온 사람도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해도 별일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연성전에 오면 기도를 하고 일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무슨 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과 똑같습시다. “이 자연성전은 어떤 관광지가 아니고, 공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도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명령하고 지시하여 이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하고 하면 노래도 제대로 안 되고, 찬양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안 드러지고, 신령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기도하러 오라.”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 대화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앉았다 그냥 가느냐. 그러면 ‘저 사람 왜 문턱만 닳게 왔다 가냐. 안 오면 좋겠다.’ 이같이 하듯 하나님께 대화도 않고 기도도 않는 자는 ‘왜 성전에 오나. 저 사람, 성전에 안 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방입니다. “축소시키면 방인데, 하나님이 계신데 한마디도 안 하고 왔다갔다만 하고 구경만 하고 가느냐? 그렇게 열 번 백 번 천 번 봐서 뭐하냐. 한 번만 구경하면 됐지.” 했습니다. 구경꾼은 역시 자주 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자는, 대화하러 오는 자는 자주 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간구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탄이 막아서 그렇게 못 한 것입니다. 사탄이 막고 마귀가 막는데 마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보지를 못하고 흑암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주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들이 온전히 되게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 예수님이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연약한 차원 낮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혼이 혼계 간혀 있어도 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할 일을 못하면 혼계에 갇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완전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호리라도 갇지를 못하면 거기서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글씨도 흑 하나 안 붙이면 다른 글씨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것들은 역시 완전하게 보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봐 버린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하게 해 주시고, 온전하게 행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이 우리들 육신이 행한 것을 가지고 휴거했다면, 육신도 휴거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휴거의 신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휴거된 자들만 신부 취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신부가 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거된 삶을 살려면 온전하라 했습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악한 자의 글을 보고, 악한 자의 행위를 본받는 그런 온전치 못한 자는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악한 자의 행위를 본받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혀를 깨물고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인들 전체가 온전케 해 주시고, 완전하게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만큼 너희들이 행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늘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잘되고 형통하는 것이 영원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온전하게 더해 주시고, 우리 섭리사에 임하는 모든 사탄들 하나님이 천군 대군을 1억 3억 보내사 완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고 역사해 주시고 사탄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는 특수한 군대들이 있사오니,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민족이 어찌하여 소란하느냐? 어찌하여 기도하는 자를 힐문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모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행해야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긴다고 했으니,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은총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영계로 봐라. 영계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으니, 육계를 보면 모른다. 기도해서 영계로 보고 영계의 사정을 알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들은, 사탄들은 매일 교육을 받고 와서 이들에게 임하는데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너희가 할 일 못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펴는 만큼, 우리가 역사를 잘하는 만큼 사탄은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흑암과 악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섭리인들 전체가 기도하고 가겠사오니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냥 중얼거리는 묵도 기도는 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않아.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확실히 해야 돼. 분명하게 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할 때 중얼거리고 말겠냐. 임금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자는 다 내쫓아 버린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할 말은 확실히 하고, 속의 말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눈물로 기도하라.” 날마다 자기 교역자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역자를 신경 쓰고 붙잡아 주고 함께 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모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교역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섭리의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 심정을 모르는 자들, 답답하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르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모두 뒤집어 주시옵소서. 평생 기도하면서 평생토록 기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한번 제대로 못 해 보고 구원이 될 수 있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로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성전도 주고, 하나님 귀한 건물도 줬으니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눈물겹게 만든 모든 것을 귀하게 써야 하지 않겠냐 했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줬으니 눈물겹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라고 했는데, 왜 교회까지 줬는데 못하냐. 예루살렘 성전을 뺏기듯이 뺏겨야 너희들이 깨닫겠냐? 한 번 뺏기면 영원히 복직이 안 된다. 예루살렘 성전 뺏겼는데, 댔냐? 그 시대에 못 하고 말지 않았냐. 이제 섭리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뺏었으니, 귀한 성전을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기도하고 늘 간구하라.” 했습니다. 사탄을 멸하고, 악을 멸하고, 귀신을 멸하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도록 기도하며 날마다 살아야겠습니다. 그런 삶이 이들에게 충만하고 영원할지이다. 각 나라, 각 민족, 각 교회, 각 개인, 각 가정들이 그리 되게 해 주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혀를 깨물며 고통 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러한 기도를 모두 하도록 기도하오니, 모두 심령이 뒤집어져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밤에도 기도, 새벽에도 기도, 기도, 기도, 기도.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비상 기도를 안 하면 역시 끝나버리는 거라 했습니다. 모두 비상 때 비상기도를 하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날짜 채우는 기도 하지 말아라. 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계속하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신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신의 능력과 권능이 이들에게 함께하고 영원할지이다.

<2019년 4월 13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의 생각>은 한시도 쉬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니 매분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
2.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성령의 생각과 감동’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의 생각’을 안 하게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생각’을 하게 된다.
3. 매분마다 ‘범죄하지 않는 생각’을 하여라.
4. 사탄이 핀다는 것을 매분마다 생각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여라.
5. <의>를 생각하고 강하게 행하여라. 그러면 ‘휴거의 차원’이 바로 높아진다.
6. <정신과 생각>을 강하게 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사탄의 방해’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된다.
7. 날마다 <근신하는 생각>이다. <조심하는 생각>이다. <스스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생각>이다.
8. <목숨> 다하고, <행실>을 다하고, <뜻>을 다해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9. <깊은 기도를 하는 생각>이다.
10.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사는 삶’이다.
11.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와 <섭리 전체를 이끌고 가는 자>와 <증거하는 자를 위한 기도>를 해 주기다.
12. 지도자는 <따르는 자들의 심령이 강하게 살아나는 기도>를 해 주기다.
13. 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멸하는 기도>다.
14. 모두 말씀을 들었으니, 깊은 기도를 하자.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하신 일>을 확실히 증거하여라. 그리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2.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증거해라. 이 시대에도 구원역사는 연속되니, ‘이 시대의 구원자’를 보내셨다.
3. <삼위>는 ‘영체’이다. 고로 ‘육체’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람’을 쓰고 나타나시고, ‘행위’로 나타나시고, ‘만물’로 나타나신다. 이를 깨달아라.
4.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이 아니라 ‘영체로 존재하시는 신’이다.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은밀히 다스려야 되기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으신다.
5. 하나님께서 매일 ‘천지 만물’을 통해 행하심을 보고, 증거하여라.
6. 하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는 대로 ‘증거하는 자의 육신’을 쓰고 더 타나신다.
7. <본 자>가 즉시 말하고 증거하여라. 시간과 때가 지나면, 판이 식어서 증거해도 약하다.
8. 성령님을 본대로 증거하여라. 성령은 ‘감동의 신’이다. <감동>이 오면, 성령이 옆에 계신 것이다.
9. 뜨겁게 기도하여라.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을 느끼게 된다.
10.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령님>도 같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이다.
11.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도 같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체이시기 때문이다. 이를 증거하여라.
12. 기도하자!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라> 함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과 그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라> 함이다.
2.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고 행하신 일들>을 ‘행한 자들’이 각자 증거해야 된다.
3.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하여 증거하여라.
4.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일들>을 증거하여라.
5.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잘되게 해 주신 일들>을 증거하여라.
6. <환난, 핍박,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여라.
7. <죄지은 것들을 거듭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증거하여라.
8. <섭리사에 불러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며 증거하여라.
9.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함께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감사하며 증거하여라.
10.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사명자를 중심하여 그를 통해 명하여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고 증거하여라.

11. 계시자들을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니 본 자들은 보고 온 대로 증거하고, 증거를 받은 자들은 증거를 받은 대로 증거하여라.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각자에게 할 일을 개성적으로 맡겨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하게 해라.

2. 사람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

3. <잘하기>다. <실수 없이 하기>다.

4. 어떤 일을 놓고 보면, 항상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너 가지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될 원칙이 있다. 그것을 빼놓지 않고 해야 되고, 매일 확인하면서 시계처럼 꾸준히 해야 된다.

5. 무엇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존재>를 알겠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 일>로 알고, 삼위는 ‘보낸 자’를 통해 행하시니 ‘보낸 주’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확신할 수 있다.

6. 가령, 하나님과 성령께서 “어디를 가 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며 감동을 주셨다 하자.<가 본 자>는 그곳에 ‘자기가 원하던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행한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7.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증거하신다. 고로 완벽하게 행하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완벽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의 완벽함을 나타내신다.

8. <완전하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은 ‘완전한 절대자’이심을 더욱 알게 된다.

9. 하나님은 무한히 가지고 계신다. <행하는 자>는 무한히 얻게 된다.

10. 하나님은 ‘자신의 욕으로 쓰는 자’를 통해 언제 나타나실지 모른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자신의 욕으로 쓰는 자’를 보이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11. 사람이 행할수록 할 일이 많듯이, 하나님과 성령님도 행할수록 할 일이 그리도 많고 많으시다.

12. 확실히 맺고 끊어야 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도 확실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때가 되면 ‘답’도 확실히 받게 된다.

13. 기도해 놓고도 <생각>에서 잊고 있으니,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께서 ‘기도한 것’을 주셔도 모른다.모르면 못 받게 되고, 받아도 모른다.하나님은 ‘구한 자의 때’에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행하신다.

14. 하나님은 주실 때 ‘구한 자의 생각대로’ 안 주시고, ‘그 처세’에 따라 주신다. <구한 자>가 ‘전체’를 원했어도 먼저 ‘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저 주기도 하신다. 고로 분별해야 된다.

15. 구했으면,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턱을 고이고 쳐다보며 사랑으로 귀히 바라야 된다.

16. 남을 통해 <자기 모순>도 깨달아라.

<2019년 4월 20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적극적으로 행하자. 그래야 얻는다.
2. 판 식으면, '운명'도 '방향'도 바뀐다.
3. 하나님의 행하심을 확실하게 말해 주자.
4. 이끌어서 만들고 관리하며 쓰자.
5. 그냥 두면, 그 자리에서만 쓴다.
6. 행하는 대로, 대하는 대로 되어진다.
7. 정신 차리고 잘하면, 보통 때보다 2배, 10배나 좋게 잘된다.
8. <더 잘하기> 철학이다.
9. 하는 만큼 더 잘된다.
10. 인생도 늘 <건설>이다. <개발>이다.
11.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 그리고 주가 행할 때 같이 행하자.
12. <한 지체>다. 고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도.
13. <머리>가 온전해야 '그 지체들'이 온전하다.
14. <온전한 자>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15. 행해야 '실체'가 된다.
16. <사탄>은 '영원한 원수'다.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인생들에게 영원한 피해를 주는 '가해자'로서만 존재한다.

<2019년 4월 2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2.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우러러볼 자>를 우러러봐야 된다.
3.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우러러봤어야 했지만, 몰라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우러러보지 못하고 '죄인'으로, '이단'으로 대했다.
4. 유대 종교인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두 천대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대한 대로 자신들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다.
5.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천대한 대로, 그 후손들까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 행위대로 대함을 받았다.
6. 예수님 시대도, 이 시대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눅 6:31)." 하는 성경 말씀대로 되고 말았다.

7. <세상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제대로 모르니 우러러보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귀히 볼 줄 모른다.
8. <우러러볼 자>를 우러러보면, 행한 대로 귀히 쓴다. ‘자신을 우러러보는 자’를 통해 자신의 말을 전하게 하여, ‘사역자’로 삼는다.
9.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자’를 쓰신다.
10. 깊이 기도해야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우러러볼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신다.
11. 예수님은 누가 봐도 ‘우러러볼 만한 풍채’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12. 예수님은 ‘풍채’도 없었고 ‘볼 만한 것’도 없었다. 겉은 그러했어도 실제로는 그가 ‘말씀’하시면 모두가 놀랐다. 역시 그는 ‘메시아’였다.
13.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만큼은 우러러보고 그리워해야 된다.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우러러보아라.
2. 가령 인간을 창조하시되, 모든 지체를 ‘그 위치’에다 ‘그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일을 보고 우러러보아라.
3. 하나님은 위에 계시니 우러러봐야 될 존재자이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우러러보는 자만 볼 수 있다.
4. <하나님>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면, “<하하하> 웃으면서, <나>의 <님>이라고 불러라.” 하는 뜻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생각하며 대하는 시대다.
5.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아라. 기묘하고 오묘하고 신비하게 ‘그 위치’에 ‘그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아라.
6.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리워하며 사랑하여라.
7.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고, 우러러보아라.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기 병을 고쳐 주심>을 깨닫고, 우러러보아라.
9. 매일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러러보아라.
10. 약수를 먹고 ‘병’이 치료되고 ‘각종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우러러보아라.
11.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드신 자연성전의 형상과 모양과 위치>를 보고 감탄하며 우러러보아라. 하나님의 구상으로 만든 월명동의 각종의 것 하나하나 그 형상과 모양과 위치를 보고 감탄하며 우러러보아라.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때마다 ‘자기에게 행하시는 일’과 ‘세상에 행하시는 일’을 깨달으려 함으로 깨닫고, 우러러보고 그리워하여라.
13. <하나님이 보낸 자를 우러러볼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러러보고 대하여라.

14. 우리러봐야 가까이 대해 준다.

15. <사람>이든 <신>이든 자신을 우리러보지 않고 자기 이하로 보면, 가까이 대해 주지 않는다.

16. <성령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고 해야 우리러보게 된다.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우리러보는 자'에게 가까이 가서서, 그와 함께 살아 주신다.

17. 땅의 권세자만 우리러보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러보고 존경하고 모시고 그리워하며 살아라.

18. 사람이 되어 사람같이 살면서 낙을 누리려면, 전지전능하신 자가 행하신 일을 알고, 믿고 존경하고 우리러보며 살아야 된다.

19. 사람들은 '실상 우리러볼 자'가 아닌데 그런 자를 우리러보고 섬기고 그리워하며 산다. 그러다 결국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죽고, 그 '영'은 그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산다.

20. 주를 찾고 섬기고, 주의 말을 듣고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러보며 살아라.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러보는 것'이다.

2. <그때그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고, 독수리같이 높이 올라가게 된다.

3. 저마다 맡은 <사명의 일>을 해야만, 독수리같이 가물가물 올라간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우리러보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 메시아가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러보고 섬기는 일이다.

5. 놀지 말고, 일할 때 일해라. 그러면 신앙이 높이 올라가리라.

6. <왕을 우리러보는 자>는 '왕이 시킨 일'을 충성으로 한다.

7.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러보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일'을 충성으로 한다.

8.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러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역사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는다.

9.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지난 40년 동안 '선교하여 생명을 이끌어 온 것'은 하나님을 우리러보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10. <하나님을 우리러보는 자>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믿고 행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믿다가 말고 제 갈 길을 간다.

<2019년 4월 2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을 우리러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낱알이 알려 주고 가르쳐 준다. 모두 하나님을 우리러봄으로 '하나님의 가이드'가 되어 '그 행하신 일들'을 전해 주자.

2.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너무 많아서 홀로 전할 수 없다. 자기만 알지 말고 본 대로, 들은 대로, 겪은 대로 각자 개성대로 전해 주자. 이것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워하는 일'이다.
3.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받아서 쓰고 사니, 자연을 개발하고 깨끗이 만들어 모두에게 보여 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고 보고 싶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자.
4. 저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책임을 다해 만들어서 '재창조'하여라. 그래야 모두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러러보며 좋아한다. 그러다가 믿고 따른다.
5.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 그냥은 우러러볼 수가 없다. 고로 '하나님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 주고 가르쳐 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행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 주어라.
6.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7. <아는 자>가 가만히 있으니,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싶어도, 몰라서 우러러보지 못한다.
8. <우러러보는 것>을 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이는 주님'도 우러러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실수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우러러보는 것>과 <그리워하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혼난다.
10. 금주뿐 아니라 평생 동안 <우러러보는 것>과 <그리워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항상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우러러보아라. <우러러보지 못하는 자>는 '무지한 자'요, '소경'이요, '교만한 자'니라.
11. <우러러보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성령님도 그 사람을 높이시어,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리워하게 해 주신다.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더 잘하니, 더 잘되었다.
2. 과거와 비교해 봐도 <더 잘한 사람>은 더 정신 차리고 더 뛰고 행하니, 불가능한 것 없이 더 잘되었다.
3. 더 잘하려면 더 신경 쓰고 더 행해야 되니, <더 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4. <생각>에서 잊으면 할 수가 없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다.
5. 더 잘해야 '문제'도 안 생기고, 더 잘함으로 날게 되니 '부딪힘'도 없다.
6. 더 잘하니 '자신감'도 생기고, 더 힘내서 '신앙'에 붙붙어 살아간다.
7. 더 잘하면 힘들지만, 더 잘할수록 잘되니 '힘'을 받는다.
8.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과감히 행하기다.
9. <전도>와 <기도>와 <말씀>과 <관리>를 더 잘하기다.
10. <교역자>도 <각 부서의 지도자들>도 '더 잘하기'다.

11. <더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함께 행해 주신다.

12. <때>를 지켜 행해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13. 더 잘해 보니, '표적'이 일어났다.

14. <더 잘하는 것>이 '승리의 삶'이었다.

15. 더 잘하니 더 날게 되었고, 더 이상적인 세계가 되었다.

16. 지금 이 시대는 '더 잘하기 시대'다.

<2019년 5월 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기다. 이는 '신앙의 필수적인 일'이다.

2. 일을 하면 손과 몸이 더러워지듯이 신앙의 일을 하면 그러하다. 일 하고 신앙적으로 씻고 닦고 더 깨끗게 하기다.

3. 무엇을 더 잘할 것인가 먼저 찾아라. 그리고 분별하고 행하기다.

4. 삶의 기본적인 일들이 있다. 그것을 주력해서 더 잘하기다. 그 일들은 매일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고, 닥친다. 더 잘하며 매일 살아가기다.

5. 더 잘하고 행했으면, 그 일의 삶의 노선은 차원 높이 바뀐다. 거기서 더 잘하기 역사다.

6. 더러운 도량도 더 잘하기 위해 깨끗이 하니 사용하는 물이 된다. 천리 길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도량물을 자기 동네에서 쓰며 보람 있게 살 수 있다.

7. 더 잘하니, 다음 것이 흰히 보였다. 그것을 행해 놓으니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

8. 사람은 한 번에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없다. 계단을 오르듯 한 칸 한 칸 올라야 된다. <더 잘하기 계단>을 계속 올라야 그 센터의 최고 경지에 올라 '더 잘하기 일'을 하게 된다.

9. <더 잘하기>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 된다.

10. 저마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더 잘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마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한 골짜기에 가서 수석을 주워도 처음에는 '보통 것'을 줍는다. '더 좋은 것'을 주우려고 해야 '더 좋은 것'을 주울 수 있다.

11. 처음에는 가난한 복지에 갈 수가 없다. 애굽, 신광야, 가난한 복지란다. 그러한 삶이 매일 일어나도록 열심을 다해 행하여라.

<2019년 5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더 잘할 수 있는 자료와 환경과 능력>이 있는데도 더 잘하려고 하지 않으니,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이상세계를 누리지 못한다.

2.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고, <더 잘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언제나 더 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육도 혼도 영도 '삼위와 주의 대상'이 되어 사랑하며 같이 살기 때문이다.
4. 더 잘해서 얻고 누리자는 자들을 보아라.
5. 더 잘해서 얻고 누리지 않으면, '더 잘해서 얻고 누리자는 자'에 대해 모른다. 안 보이고, 머리에 인식이 안 된다.
6. 때가 있다. <더 잘하라고 한 이때>에 하자.
7. <더 잘해야 되는 때>가 지금 지나간다. 어서 하자.
8. 무엇이든지 더 잘하고 더 얻으려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간구 하여라.
9. <육적>으로 <영적>으로 '두 가지를 더 잘하기'다.
10. 더 잘할수록 더 잘해지고 더 행해지는 것이다.
11. 항상 더 잘하려면, 정신 일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의논하고, 사랑이 열렬해야 된다.
13. 남들이 더 잘해 놓은 것을 자꾸 보고 배워라. 깨닫고, 자기 식으로 하기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항상 기도로 물어보아라. '더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
15. 무엇이든지 행해야, '더 잘할 것'이 보이고 생각난다.
16. <행하는 자>에게는 '더 잘해야 될 것'이 보인다.
17. <뇌>는 해 버릇해야 자동적으로 작동된다.
18. <뇌>는 발달시킬수록 더 발달된다.
19. <더 잘해 놓은 데>서 '더 잘해야 될 것'이 생각난다.
20. <해 놓은 것>을 더 귀하게 쓰고, 역사를 이루며 써라.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21. <더 잘해 놓은 것>을 쓰면서 전도하자. <사망으로 가는 자>를 '생명권'으로 돌아오게 하자.
22. 더 잘하려고 기도하니, 성령님은 이같이 더 이상적인 '더 잘하기 잠언'을 주셨다.
23. 더 잘해 놓고, 성령께도 주께도 늘 자랑하자.
24. <남보다 더 잘해 놓고 더 많이 얻은 자>를 보면, 격찬하고 감탄하며 좋아한다.
25. <더 좋은 자> 찾기다. <더 좋은 작품> 찾기다.

26. <더 좋으면서 더 값이 험한 것>을 찾고 얻기다.
27. 찾으면, 얼마든지 ‘더 좋고 값도 싼 것’이 있다.
28. 실상은 그리 좋지 않은데, TV 광고만 보고 비싸게 사서 그게 좋다고 으스댄다. 모르면, 앓다가 죽는다.
29. 모르면 손해 간다. <더 잘하기의 가치>를 알고 속지 말고, 속이지도 말아라.
30.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 ‘사랑’이 빛나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랑’도 실패하게 하신다. 고로 <휴거 역사>가 깨진다.
31. <사랑을 더 잘하기>다. <사랑>이 깨지면, 사는 맛도 없고, 가치도 없고, 곤고에 빠진다.
32. <하늘 사랑>도 ‘더 잘하기’다.
33. <하늘 사랑>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자’다.
34. <영원한 세계>를 두고 ‘더 잘하기 역사’다.
35. 오늘도 <더 잘하기 생각>을 잊지 말고 행해라.
36. <사람들에게 더 잘해 주기>를 꼭 잊지 말고 하여라. <전도>를 위해서도 더 잘해 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더 잘해 주어라.
37. <잘되는 길>은 ‘더 잘하기 역사’다.
38. 할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라.
39. <더 잘하기>를 행하여 ‘더 잘된 자’는 희망과 보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얻고 누리기다. 모든 자와 얻고 같이 누리기다.
40. <생각과 몸>에 ‘더 잘하기 불’이 붙어야 더 잘해진다.

<2019년 5월 5일 주일 잠언>

1.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사탄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게 한다.
2.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실패한다.
3. <마가복음 8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다. 특히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반대하는 것을 모르고 베드로 너도 반대하는구나. 주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주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주의 입장’을 진실로 알아야 된다.”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다.
4. <예수님>은 먼저 ‘구약을 중심한 유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다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이단시하고, 불신하니 점점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4000년간 유대 종교인들을 이끌며 “나의 택한 백성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곁에서 항상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겠다.”라고 약속했었는데, 이들이 보낸 자를 불신했다고 그냥 무산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도 구약시대에서 끝나고, 그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산 것도 헛일로 끝나게 되니 불신한 대로 그냥 놔둘 수 없으셨다.

5.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셨다. 하나님은 4000년 동안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오셨다. 노아 때는 심판을 하시며 의인을 살리셨고, 모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들이 몰라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불신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고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다. 고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내셨다.

6.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베드로가 “선생이여 가지 마소서.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하며 ‘예수님을 못 가게 하는 입장’으로 말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유대 종교인들을 꼭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이미 시대의 운명이 기울었기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나 불신한 자들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 주는 세계로 결정하셨다.

7.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가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한 죽음’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 주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불신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후대에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조건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됐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저 주고 ‘구원 길’을 닦아 놓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다.

8.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도 생각하고 ‘하늘의 것’도 생각하고 행해라.

9.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10.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사탄’이 개입한다.

11. <사탄>은 어느 때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막고 불신하고 내쫓게 함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니, 이것도 막았다.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다.

12. 결국 사탄의 작전은 무산돼 버리고 실패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성공하고 온 인류는 구원받는 역사가 됐다.

13. 어떤 종교는 <예수님>이 영광의 길로 와서 영광스럽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불신한 대로 그냥 두면 사망길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 줌으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만민을 구원시키는 영광의 길’을 가셨다.

14.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가지로 보는데 크게 보면 결국 ‘영광의 길’이다.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시키면서 다시금 ‘제2의 역사’를 펴기 때문이다.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이 주를 믿고 사랑하며 구원받게 됐다.

15. 이 시대도 그러했다. 선생이 해외에서 복음을 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하며 여러 가지로 막았다. 그러나 선생은 “한국에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을 위해서 가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펴러 왔다. 결국 <따르는 자들>과 <불신하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을 위해 ‘시대 십자가’를 졌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길과 휴거의 길을 열어 놓았다. 고로 이제는 과거에 주를 불신했을지라도 다시 주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로 올 수 있게 됐다. <전환>

16. 오늘 아침에 운동장을 뛰는데, 두 달 동안 운동을 제대로 못 해서 헉헉대며 뛰었다. 이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몸도 제 마음대로 못 하고 살면서 어찌 남을 위해 살 수 있겠느냐?” 하시며 “자꾸 뛰고 달리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하셨다.
17.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몸이 병들고 아프면 못 하게 되고, 정신과 생각이 죽으면 못 하게 되고, 게으르면 못 하게 된다.
18. <자기 몸>과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줄 알아야 ‘자신’도 주관하고, ‘타인’도 주관하고, ‘천주’도 주관한다.
19.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면 안 된다.
20. <축구 경기>를 할 때도 ‘한 가지’만 잘한다고 골이 들어가지 않는다. 첫째, <힘 조절>을 잘해야 된다. 둘째, <거리>를 정확하게 썰 줄 알아야 된다. 셋째,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넷째, <볼의 높이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맞으면 볼이 100% 들어간다.
21. <신앙생활의 삶>도 그러하다. <신앙>을 잘했는데 잘 안 된 이유는 ‘한 가지’는 잘했어도 ‘다른 한 가지’가 안 됐기 때문이다. <기도>와 <행함>과 <주를 중심한 말씀>과 <삼위와의 일체>다. 하나님은 늦더라도 이 ‘네 가지’를 맞추고 행해야 형통하게 해 주신다.
22.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23. <한 가지>를 성공해도 ‘다른 두세 가지’가 안 돼서 결국 성공을 제대로 못 한다.
24.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너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100% 제대로 된다. 100% 제대로 하면 문제없이 끝나지만, 제대로 못 하면 성공이 안 된다.
25.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한 가지 낙>을 가지고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셨다. 가령 결혼 대상이 “사랑하는 자만 만나면 최고다! 더 이상 없다.” 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어떻게 ‘사랑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 된다. 몇 가지가 맞아야 살아간다.
26. <한 가지>만 해결하고 살면 인생이 재미가 없다.
27.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해결하고 살아야 곤고하지 않고,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28. <한 가지>를 행할 때는 ‘그 한 가지에 해당되는 일들 서너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행해야 된다.
29. 흔히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서 바로 문제가 생긴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30. <야심작>을 쌓을 때도 처음에는 ‘멋있게 쌓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무너졌다. 물리법칙에 의해서 높이가 높아지면 돌 하나가 받는 중량이 커지는데, 멋있게 쌓는 것만 생각하다가 ‘각도’를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네 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쌓았다. 그 네 가지 중의 하나는 <보좌 형상>이었다. 하나님이 구상하신 <보좌 형상>이 안 이루어지니 계속 무너지게 하신 것이다.
31. <사업>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유익이 없게 된다. 물건을 많이 판다고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흑자가 나야 유익이다.
32. 사업하는 데 ‘네 가지 성공 법칙’이 있다. <시간>이 있어야 하고, <자료>가 좋아야 하고, <기술>이 있어야 하고,

<때>를 맞춰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맞추지 않고, 한두 가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실패한다.

33. 어떤 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누가 돈을 대 준다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하는 대로 망했다. ‘시대가 지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34. <땅>에 건물을 짓거나 개발을 할 때도 ‘한 가지’만 허가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토지법’와 ‘산림법’과 ‘건축법’에 맞게 다 허가가 나와야 된다.

35. 무엇을 만들 때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만들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된다.

36. <교회>를 살 때도 ‘가격’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남시터에는 고기가 있어야 하듯이 교회 주변에는 캠퍼스가 있어야 선교가 잘된다.

37. <한 가지>만 보고 행하면, 해 놓고 ‘후회’를 한다.

38. <운동>만 생각하고 하면, ‘몸’에 무리가 생기고 ‘건강’이 무너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다쳐서 운동을 못 하게 됐다. ‘몸 체질’과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살 했으면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었을 것이다.

39.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일을 놓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면, ‘다른 것’에 손해가 가게 된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일’로 인해서 온 손해다. 그러면 하던 일도 못 하고, 다른 것에 생기는 문제를 막아야 된다.

40. <한 가지>만 보고 행하면 ‘무서운 일들’이 생긴다.

41. 어떤 사람은 ‘급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사고가 났다.

42.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어떤 일은 ‘두 가지’를 맞춰야 성공하고, 어떤 일은 ‘세 가지’를 맞춰야 성공하고, 어떤 일은 ‘네 가지’를 맞춰야 성공한다. <전환>

43. 사람은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산다. 몰라서 그러하다.

44. “<필요 없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의 해’가 너무 짧다. <꼭 필요한 일>만 하다 보면 ‘할 일’이 많지 않다.” ‘이 두 가지 잠언’을 암기하고 매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45. 사람이 <필요 없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느라 ‘성공 길, 갈 길’을 못 간다.

46. <필요 없는 일>을 안 하면, ‘할 일’은 많지 않다.

47. <필요 없는 일>을 하면, 인생 시간이 ‘50~70년’ 남았어도 실상은 ‘20~30년’밖에 안 남은 것과 같다. 남은 시간을 ‘필요 없는 삶의 시간’에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한 일>만 하면, 인생이 ‘20~30년’ 남았어도 ‘40~60년’ 남은 격이 되고, 더 오래 산 격이 된다.

48. <인생 100년>을 ‘하루’로 축소시켜 보고 살아라.

4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꼭 필요한 일’만 하고, 알차게 살아라.

50. <필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사람>만 만나면 ‘하루의 해’가 길다.

51. 저마다 과거에 <필요 없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 또 그러한 삶을 살면 ‘인생의 해’가 얼마 남지 않게 된다.

52. 인생을 살다 보면 몰라서 <필요 없는 일>을 그리도 한다. 필요 없이 돈을 투자하고, 힘을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하면서 산다.

53. 절대 <필요한 삶>만 살기다.

54.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 삶>만 살기 위해 기도하며 ‘필요 없는 일’은 안 하고 ‘필요한 일’만 하고 살았다. 필요한 일만 한 것 중의 하나가 <한글>만 공부하고 바로 인생길을 찾는 것에 뛰어든 것이다. 대신 삶 속에서 <생활의 학문>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목적>을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다 15세 때 ‘군대에 장기 복무’를 신청하듯이 ‘신앙의 장기 복무’를 신청했다.

55. 선생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며 ‘필요 없는 일’을 자르고 행했기에 ‘인생 20년’을 절약했다. 그리고 인생 7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승리했다. 하루만 틀렸어도 하나님의 때를 못 맞췄을 것이다. 그러나 순서 있게 할 것을 먼저 하며 행했더니 때를 맞추게 됐다.

56. 인생을 헛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는 일’을 많이 한 자들이다.

57.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필요한 일’만 보인다. 고로, 말씀대로 살면 4~5배 산 것과 같다. 노선 잘못 타면 필요 없는 일을 거치게 된다.

58. <필요 없는 종교>를 믿고 살면 ‘필요 없는 세계’로 간다.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다.

59. 선생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인생을 오래 살고 싶어요.” 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오래 살지 못한다. 다만 나이가 들어도 20~25년 정도 짧게 뛰도록 조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오래 살아 봤자 90세가 넘으면 시든다. 그러므로 ‘빨리 알고 빨리 뛰는 방법’ 외에는 없다. <필요 없는 일>을 하지 말고, <필요한 일>만 하고 살아라. 그러면 인생 80세까지 일을 했어도 300년~500년 일한 만큼 살다 갈 수 있다. 나의 말씀과 묵시와 계시를 받고 행해라. 그러면 인간으로서 행하지 않고 나 여호와의 일을 반영해서 행하게 되니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가 가도 못 이룬 뜻을 이뤘다. 그러므로 반만년 이상을 산 것이 됐다.

<2019년 5월 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은 이 길로 가면 이 길이 생기고, 저 길로 가면 저 길이 생긴다. 하지만 아예 ‘더 좋은 길’을 가야 된다.
2.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중심한 길>이다.
3.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지 않은 길>은 ‘허무의 길’로 끝난다.
4. <영원한 길>은 세상을 살면서 결정된다. 고로 <육의 삶>이 곧 ‘영원한 길의 삶’이다.
5. 항상 <주의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6. <세상길로 간 자>는 인생길을 다 간 후에야 잘 갔는지, 못 갔는지 알게 된다.
7. <생명 길로 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 길’로 가기에 매일 알고 간다.
8. 하나님 안에서 ‘저마다 각각 다른 개성의 길’이다.
9.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저마다 각각 다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저마다 만족한 개성의 길>을 간다. <자기 취향>

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만 가지 취향>을 각각 행하며 사는 삶이다.

10.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 길 속에서 ‘자기 길을 배우고 찾아가는 삶’이다.

<2019년 5월 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한 번 해 주신 것은 두고두고 생각해 보아도 감사와 감격뿐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가지’만 보고 해 주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를 보고서 해 주신다. 그리하여 각종으로 귀히 쓰게 해 주신다.
3. 하나님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일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를 보고 행하신다.
4. <한 가지만 보고 불의를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5. <서너 가지를 보고 행하는 자>는 ‘지혜자’이며 ‘지식자’요, ‘천 년씩이나 앞날 내다보고 사는 자’다.
6. <될 것>만 보고 행하지 말고 <안 될 것>도 생각하면서 투자도 하고 일도 해야 된다.
7. <할 일>을 하면서도 일할 것들을 잘 고려하며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
8. <악한 자들>은 ‘악한 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다.
9.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과 ‘불법의 말’과 ‘무지한 말’로 의인들을 심문하며 악평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세상을 더럽히는 자들’을 의인들을 통해 심판하신다.
10. 미련할수록 단순하고 ‘한 가지’만 생각한다.
11.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행한다면 필요 없는 일을 안 하게 되고, 할 일도 많지 않고, 시간에도 안 쫓기고, ‘알찬 일, 흑자의 일’만 하게 된다.

<2019년 5월 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여러 가지를 보고 행해야 되지만, 사건에 따라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담대히 행하여라.
2. 여호수아 군대같이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3. <사탄>은 ‘사람’을 쓰고 행한다.
4. 항상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긴다. 담대하고 굳건히 행하여라.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다. 운동할 때도 항상 ‘사명자가 있는 팀’이 이기듯 ‘사명자가 있는 곳’이 이긴다.
6. (성령께서 교역자들에게 전하시는 잠언이다.)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증거자를 통해 성령께서 단호히 교육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너희가 생명들을 철저히 교육해 주고, 불법과 불의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 단호히 가르쳐 알게 해 주고 행하게 해 주어라.
7. 여러 가지를 보고 행해야 된다.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고 시험에 드는 악한 자들이 있다. 악한 자들을 담대히 물리치고 행하여라.

8. <믿음>을 굳건히 해라.

9. <성령>과 <주>가 함께하리니, 일체 되어 행하여라.

10. 인(人)사탄은 <증거자>를 괴롭힌다. <증거자>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요시아>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느고’를 믿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다.

2.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다가 결국 타락되고 말았다.

3. <룻의 아내>는 ‘육적인 것 한 가지’만 생각하다가, 결국 구원받는 길을 나오던 도중에 죽었다.

4.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생각하고 ‘자신’도 생각하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시대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5. <야곱>은 힘들고 고생되었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참고 견디며, 2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재물도 얻고, 형통하게 되었다.

6. <요셉>은 고생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끝까지 견딤으로 자기 꿈도 이루고,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들도 이상적으로 살게 해 주었고, 타민족도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

7. <사울 왕>은 ‘급한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고, 그 후에 왕권도 뺏기게 되었다.

8. <욥>은 고생됐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탄과 악평하는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행함으로 시험도 이기고 시대 축복도 받고 살았다.

9.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한 자들>은 ‘사탄과 흑암의 주관’을 받고 ‘악한 자들의 꾀’를 받고 살다가, 결국 사망길을 가게 되었다.

10. <세례 요한>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사명도 못 하고, 결국 억울한 죽음까지 맞게 되었다.

11.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만민을 구원하는 길’로 가서 ‘인류 구원’에 성공하셨다.

12. 어느 시대든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악평한다. 이 시대도 <자기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다.

13. 이제 평생 동안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항상 금주의 말씀을 뇌 속에 넣고 행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형통하며 사탄과 악한 자들을 굴복시킨다.

14. <구시대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만 생각하고 행하다가, <새 시대>를 좇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2019년 5월 12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쓰며 누리라.

2. 주일 새벽 한 시쯤에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하나님께 궁금한 것들을 물었다. 선생이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오늘 있는 큰 모임에 전하실 말씀이 궁금합니다.” 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은 말로 하기보다 직접 보여 주마.” 하시며 “<월명동 자연성전>은 내가 너희에게 준 축복이다. 이 축복을 귀하게 쓰고 누리라.” 하셨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준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고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만물들’을 합당하게 쓰고 누리라 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해 줘는데도 귀한 것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른다. 만일 부모나 애인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 집을 지어 주고, 정원도 만들어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해 줘는데도 그것을 귀히 보고 쓰고 누릴 줄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 여호와도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3. 하나님은 지구상에 <수백만 가지의 만물>을 사람이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쓰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사람은 때에 맞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필요한 존재물을 사다가 쓰기도 하고, 찾아서 쓰기도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4.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다 쓰고 누리다 죽어도 ‘인생 100년’이 짧다. 그런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고, 전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그만들 하여라.

5. 이 시대는 <가장 선량하게 사는 나라>를 위대하게 우러러보는 시대다.

6.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인생 100년 동안 부지런히 쓰고 누리라. 그러려면 먼저 ‘창조자’를 배우고 알고 깨달아라.

7.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8. <만물을 누리는 것>은 두 번째다. <만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데 해당되는 부속품’과 같다.

9. 모든 만물은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가령, 한 남자가 애인을 사귀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면, 필요한 대로 모든 만물이 동원되는 것과 같다.

10. <영원히 사랑할 자인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기쁘게 사는 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쓰고 누리며 즐겨라.

11. <사랑의 즐거움>이다.

12.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자기가 가진 어마어마한 사랑’을 다 쓰고 죽는다.

13. 하나님은 <사랑>을 무한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사랑’을 다 쓰고 죽을 수 없고,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사랑’을 다 쓰고 죽을 수 없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만 ‘자기 사랑’을 충분히 다 쓰고 죽는다.

14. 사람들은 결혼해서 사랑하며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기대’에 어긋나서 헤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 이지가지가 다 맞다.

15. <하나님>은 영원히 보아도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인물’이시다. <성령님>도 ‘볼수록 더 아름답고 화려하신 존재자’이시고, <성자> 역시 ‘볼수록 위대하신 존재자’이시다. 고로 그에 합당한 사랑을 해야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될 수 있다.

16.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가 ‘위대한 사랑을 하는 자’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개성대로 멋있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삼위를 사랑하면서 천지 만물을 마음껏 쓰게 하셨다.
18. <멋있고 아름다운 몸>과 <자기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9. 사람들은 편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며 살아야 된다.
20. <삼위를 사랑하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21. <만물을 쓰는 것>도 ‘누리는 것’이다.
22.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누리는 것’이다.
23. <자기 꿈을 실현하는 것>도 ‘누리는 것’이다. <전환>
24.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줬는데 ‘그 능력과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이 ‘축복’을 준 것이었다.
25.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니, 주인은 “잘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충성하며 열심히 했으니 앞으로 너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했다. 그다음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니, 주인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로다. 너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더 많은 것도 맡기겠다.”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주인이여,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은 장사하지 않고 돈만 맡기는 자이니, 나도 똑같이 돈을 땅에 묻어 놓았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가세요.” 했다. 이에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다. 너는 나를 오해하였으므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 하며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그는 내쫓아 버렸다.
26. 모든 <인생>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 한 인생이다. 이 중에서 어느 인생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 계속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자기에게 준 재능과 재질’을 충분히 쓰며 인생을 멋있게 살아라.
27.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능력과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신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축복’이다. 그 축복을 사용하고 누릴 때,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28.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쓰고 누리라.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좋아하며, 성령 안에서 성자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된다.
29.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낙으로 사는 것>이 ‘누리는 것’이다.
30.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다.
31.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세계’에서만 누리고 끝난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영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된다.

32.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축복’을 쓰고 누리고 살아라.

33. <만물>도 큰 축복이지만, <사람>이 크나큰 축복이다.

34. 사도 바울은 성경에 말하기를, “나의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다. <내 말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의 면류관이자 축복이다.” 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 맡기신 일을 할 때 따르는 생명들이 축복이다. <전환>

35.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산 자들>이 ‘육도 영도 잘되는 축복’을 받고 살았다.

36.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택해서 ‘에덴동산’에 불러다 살게 하셨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과일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37. 1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네가 참으로 마음에 든다. 너는 나를 믿고 완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구나. 잘했다.” 하시며 “그같이 살지 않은 자들은 비를 내려 심판하겠다. 너와 네 가족은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 가라.” 하셨다. 그로 인해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축복’을 받고 살게 됐다.

38. <아브라함>은 신앙심은 있었으나, 우상을 섬기는 땅인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진짜 신앙의 대상인 영원한 존재자 하나님’을 못 찾고 있었다. 고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나는 여호와다.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하셨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매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3~4대까지 축복을 주셨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

39. <모세>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 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의심하고 불신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신광야에 내버려 두셨다.

40.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선조들이 400년 전에 살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나 이미 그 땅은 다른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고 담대하게 행했다. 그로 인해 가나안 땅의 7개 부족, 31개 지역의 31명의 왕들과 싸워 이겨서 자기 선조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개발하여 이상세계로 만들고 살았다.

41.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자기 앞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

42. 미약하고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확신하게 되고, 천지를 뒤집는 사고와 사상과 정신을 갖게 된다.

43.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독수리같이 하늘을 높이 날고, 치타같이 빠르게 뛰고 날린다.

44. <담대>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

45.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면서 담대할 줄 모른다. 그러니 ‘전환과 변화’가 없이 과거에 살았던 대로 비슷하게 살아간다.

46.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변화’가 태풍같이 일어난다.

47.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다하며 살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

신 많은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만물’을 깨우쳐 주어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하며 시대를 이끌어 나갔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렸던 구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판하고 막았다. 하나님은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시대를 구원하려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48.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듯이 신약시대 때도 ‘사람’을 쓰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몰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신약 2000년 동안 역사를 펴셨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만물’을 가르쳐서 누리게 해 주며, ‘진리’를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천국으로 가게 했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저 줌으로 <불신하는 자들>에게도 ‘구원 길’을 열어 놓는 역사를 정녕코 이루고 말았다. 결국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수십억이 되게 만들었다. 이 시대에도 <새 시대 말씀을 듣고 가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천 년 동안 일어난다.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누리라.
2. 받기만 하지 말고, 받은 것을 귀하게 쓰고 누리라.
3.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폐단>이 있다면, 얻고 받으려고 그리도 노력하고 애를 썼으나 받은 것을 쓰고 누릴 줄 모른다는 것이다.
4. <복을 받는 기술과 지혜>도 크고 크지만, <귀하게 쓰고 누리는 기술과 지혜>도 크고 크다.
5.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은 ‘축복 덩어리’다. 이를 귀하게 여기고 쓰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6.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물을 어떻게 쓰냐고 묻고서 알고 써야 만물을 합당하게 쓰고, 보물도 많이 찾게 된다.
7.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덩이’다. ‘황금 덩이’다.
8.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써라.” 하며 축복해 주셨다.
9. <하나님께 축복 받는 자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만물들로 인해 복을 받았다.
10.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을 쓰고 누리는 자는 ‘육신’으로만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받는 영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사망과 고통의 세계로 가고 말았다.
11. <만물의 축복>을 얻고 누리려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의 말을 듣고 ‘절대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2.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그곳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을 살게 됐다.
13. 1600년이 지난 후에 <노아>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아라랏 산 밑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았다. 그로 인해 그 지역이 ‘시대의 심판’을 받았어도 <노아>는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고 살았다.
14.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3~4대까지 축복을 주었고,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셨다.

15. <모세>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신광야로 나와 살게 하셨다.

16.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했다. 그로 인해 가나안 땅의 7개 부족, 31개 족속의 적과 싸워 이기고, 자기 선조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개발하여 이상세계로 만들고 살았다.

17. 혼자서는 못다 누린다. 많은 자들과 함께 누려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도 혼자서는 못다 누리니 ‘시대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누렸다.

18. 모두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놀리지 말고 쓰며 누려라.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쓰고 누리려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쓰고 누려라.

2. <한 가지>를 찾으면, 그와 같이 ‘다른 것’도 찾게 된다.

3. <책임>을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

4. 이미 줬어도 관리하지 못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다.

5.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려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못하면, 관리를 해서 만들 때까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6. <자기 관리>를 잘해야 ‘자기’로 인해 제대로 누린다. <만물>도 그러하고, <환경>도 그러하다.

7. <자기 것>만 누리려 하지 말고, <이웃의 것>과 <민족의 것>도 쓰고 누리야 된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더 누리게 된다.

8. <성경의 중심인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누렸는지 보아라. 그들은 열심히 충성으로 행했으며,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살았다.

9. 조금 누리지 말고 100% 행해서 100% 누려라. 흔히 사람들은 <좋은 것>은 조금 하다가 말고, <나쁜 것>은 조금 참다가 또 한다.

10. 자기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야 누리고, 열심히 해야 누리고, 기도해야 누리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돼야 누린다.

11. <자기 재능 개발>이다. <자기 생각 개발>이다.

12. 건강해야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누려라. 때가 지나면,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린다.

13. <봄에 누릴 것>은 ‘여름’이 되면 못 누리고, <여름에 누릴 것>은 ‘가을’이 되면 못 누리고, <가을에 누릴 것>은 ‘겨울’이 되면 못 누리고, <겨울에 누릴 것>은 ‘봄’이 되면 못 누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때’를 놓치면 못 누린다.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축복>은 혼자 누리기도 하지만, ‘대상들’이 누리게 해 줘야 누린다.
2. <홀로 누릴 것>이 따로 있다. 축복은 ‘줘야’ 누리고, ‘영광스럽게 해 줘야’ 누린다.
3. 각자 받은 대로 누리게 된다.
4. <받은 달란트>를 놓리지 말고, 쓰며 누려라.
5. <뜨는 해>를 ‘지는 해’로 보면, ‘새 시대’를 못 누린다.
6. <미련>하면, ‘축복’을 줘도 못 누린다.
7. <화평>하고 <화목>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린다.
8. <하나님과 성령님>을 진정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축복’을 누린다.
9.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10.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축복’을 누린다.

<2019년 5월 1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려라.
2. 하나님은 <새 시대>에 와야 ‘시대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받고 누리게 하셨다.
3. 행해야, 늘 받고 누린다.
4. <의인>이 되어서 ‘육’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대의 축복을 받고, ‘영’으로도 영원히 누려야 된다.
5. <축복>을 누리려면, ‘삼위일체’를 사랑해야 된다.
6. <인간>은 ‘생각’도 ‘마음’도 좁다. <자기 할 일>을 해야 ‘생각’도 ‘마음’도 넓어져서 받고 누리게 된다.

<2019년 5월 19일 주일 잠언>

1. <마태복음 20장 1절~16절>은 예수님이 그 시대의 현실을 보시고 축소시켜서 ‘천국’을 비유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고 했다. 이는 <하늘의 천국>과 <땅의 천국> 두 가지를 보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역사를 펴는 당세의 현실을 보며 ‘지상의 천국’을 말씀하시고, ‘천상의 천국’도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2. 항상 <두 가지>로 봐야 ‘실수’가 없다. 육적으로도 보고 영적으로도 봐야 되고, 지상 세계로도 보고 하늘 세계로도 봐야 되고, 유형 세계로도 보고 무형 세계로도 봐야 된다.
3. <천국>도 ‘두 가지’로 봐야 더 이상 없이 크게 본다. <천국>을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하늘의 천국’이고, 형이하학적으로 보면 ‘땅의 천국’이다.
4. 예수님은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시간마다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는 모습에 대해 말씀했다. <먼저 온 자>는 오

전부터 와서 일을 했고, <나중에 온 자>는 늦은 오후에 와서 일을 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다. <섭리역사>도 생명들을 초창기 때만 불러들이지 않고, 섭리사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러들였다. 이와 같이 <천국>도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생명들을 계속 불러들인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5.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간과 때>는 각자 다 다르다.

6. <아기를 낳는 시간과 때>가 다 다르듯이 <섭리사의 생명들을 낳는 시간과 때>도 다 다르다.

7. 포도원의 주인은 <오전에 와서 일한 자>에게나 <오후에 와서 일한 자>에게나 ‘동일한 값’을 주었다. 기성은 이를 해석할 때 “<오후에 온 자>는 늦게 온 만큼 열심히 해서 <오전에 온 자>와 동일하게 일했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받은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을 모르는 심리적인 해석이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장수라도 배로 일하는 것은 힘들다. <오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 아무리 설령설령 했어도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 ‘일한 양’으로 따져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고로 기성의 해석법은 틀렸다.

8. <오전에 온 자>와 <오후에 온 자>는 ‘일하러 온 때’로 보나 ‘일한 시간’으로 보나 ‘일한 양’으로 보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오후에 온 자>는 어떻게 ‘동등권의 대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일꾼들을 불렀을 때, 순종하고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 흔쾌히 기뻐하며 온 것에 ‘공의의 법’이 적용되어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등하게 대함을 받은 것이다.” 하셨다.

9. 천국의 세계도 그러하다.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같은 천국을 간다. 다만,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대로 먼저 받아서 때마다 누리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대로 받고 누린다. <전환>

10.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다.

11.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았다. 이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려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고 하셨다. 결국 <노아>는 ‘방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됐다.

1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세에는 <이삭>을 낳게 하시고, 후대에는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많은 ‘신앙의 자손들’이 불어나게 하셨다.

13.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도 육적으로만 따지면 ‘받은 것’을 모른다.

14.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만 믿고 막연히 기다리면 얻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면서 꼭 주인이 되어 받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15.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어도 <실제>로는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16.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셨어도 몰라서 못 받고, 미련해서 못 받고, 자기를 중심해서 못 받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몰라서 못 받는다.

17.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다가 ‘약속’을 잊으면, 못 받고 끝난다.

18. <약속>을 잊으면 죽는다. ‘약속대로 안 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전환>

19.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약속하신 것>을 ‘그 시대’에 이루어 주기도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이루어 주기도 하신다.

20. 하나님은 <구약에 하신 약속들>을 그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새로운 신약 시대’에 이루어 주시기도 했다.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너희를 위해 구주를 보내 준다.”라고 한 약속이다.
21. 하나님은 신약에도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들을 그 시대에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한 약속이다. 즉, <재림에 대한 약속>이다.
22. 하나님은 구약 때도, 신약 때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음 시대’에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가 ‘약속을 받은 시대’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23. 하나님은 구약 주판권이 끝나고 <신약역사>가 시작했을 때,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고, 신약 주판권이 끝나고 <성약역사>가 시작했을 때 약속대로 ‘새 시대 메시아’를 보내셨다.
24. 성경을 세밀하게 보려면, 하나님이 따지시는 <절대적인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중에 ‘역사의 때의 법칙’이 있는데, 이는 ‘수리적인 법칙’이다.
25. <구약>은 절대적으로 ‘4000년 역사’이고, <신약>은 ‘구약의 반절인 2000년 역사’다. 그리고 다음 시대인 <성약>은 ‘신약의 반절인 1000년 역사’다. 왜? 그만큼 ‘시대’가 빨라지기 때문이고, 그만큼 ‘차원을 높이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26. <하나님이 정한 역사의 때>가 지나면 하루도 넘기지 않고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이는 해가 넘어가면 달이 뜨는 것과 같고, 때가 되면 하루의 일과가 뒤바뀌는 것과 같다.
27. <때>가 되면 ‘모든 만물의 이치’가 뒤바뀌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다음 시대의 역사’로 뒤바뀌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도 ‘새 시대의 인물’로 뒤바뀐다.
28.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로 인해서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 그때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29. 하나님은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다. <메시아를 보내 준다는 한 가지 약속>만 이루어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백만 가지’를 다 이루어 주신다.
30. <구약의 가장 큰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 준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음으로 가장 큰 약속이 깨져 버렸고, 그로 인한 모든 뜻도 깨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머지 약속들>을 그때마다 시대의 노정을 가는 가운데 다 받게 하셨다. 그 약속들을 이루어 줘야만 다시금 <새로운 큰 약속>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31.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한 것’을 꼭 주신다. 그 원인은 <약속한 것>을 줘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뜻을 펼 수 있기 때문이고, <약속한 것>을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타깝기 때문이다.
32.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주시되, 그냥 주지 않으시고 ‘조건’을 지켜야 주신다.
33.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인간이 정녕코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절대적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루신다. 왜?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신 앞에 <절대적인 조건>을 세워야 ‘뜻’이 이루어지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둘째, <절대적인 조건>을 세우고 ‘뜻’을 이뤄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영원히 기쁜 일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절대적으로 행해야 ‘사탄’이 힐문하지 않기 때문이다.
34.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라 ‘절대성을 지켜 뜻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신다.
35. <하나님의 일>을 꺼림칙하게 해 놓고 평생을 기쁘게 살면, 절대신 앞에 ‘꺼림’이 된다. <전환>

36. 구약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칼과 검을 가지고 와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상세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한 성경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쓰고 오셨다.
37.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가 온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만 했으니, 그들의 처지를 보면 어느 누가 나타나도 멸시하고 이단시할 수밖에 없었다.
38.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서 ‘구약 율법’을 믿고 살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시니, 유대인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연구하고 기도했어야 됐다.
39.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면 예수님이 어느 혈통에서 나는지, 어느 위치에서 나는지, 누구를 통해 나는지까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40.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의 일>도 ‘육신’을 통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
41.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몰랐다. 하나님은 ‘절대신’으로서 오고 가시고 말씀하셔도 사람이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고 역사하셨다. 사람은 사람끼리 제일 잘 통하기 때문이다.
42.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아담 때는 ‘아담’을 통해 역사하시고, 노아 때는 ‘노아’를 통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고,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선지자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사사 때는 ‘사사들’을 통해 역사하셨다.
43. <만물의 이치>를 보면 모두 ‘존재물’을 쓰고 일한다. 무엇이든지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44. <마음>도 <생각>도 ‘육신’을 쓰고 일하고, <혼>도 <영>도 ‘육신’을 쓰고 일하고, <뇌의 모든 작용>도 ‘육신’을 쓰고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택한 자 한 명’을 쓰고 그 뜻을 이루신다.
45.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를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희망과 기쁨으로 살았지만, 약속받은 것을 ‘실제’로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인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도, 보낸 자의 말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경히 여기며, 예수님을 하나님께 역행하는 자로 봤기 때문이다. 이는 <문서>로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문서에 해당되는 실제’는 못 받은 것과 같다.
46. 모르면,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을 얻지 못한다.
47. 신약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기성인들은 <메시아를 다시 보내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결국 ‘실제’로 맞고 섬기지 못하고 끝났다.
48. 기성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니, “우리는 예수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다.” 하며 <예수님>만 다시 오시길 기다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대 보낸 자’의 몸을 쓰고 오셨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이 죽으면 다시 못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49.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시대의 인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면, 재림 때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새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50.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만큼 크다. <전환>

5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약속대로 다 해 주었다.
5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약속대로 해 주니, ‘약속’을 받고 ‘실제’로도 받아라.
53. 항상 <하나님과 주>를 중심하고, <성령의 감동>을 중심해야 ‘약속받은 것’을 잊지 않고 받는다.
54. <태만>하면, ‘약속한 것’을 안 이루어 주신다.
55. <약속>을 이루려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절대적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56. <가뭄>이 있을 때 비가 오면 곡식이 더 자라나듯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더 뛰고 달리고 쫓아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주인’이 되어라.
57.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도, 약속을 실제로 받는 과정에는 ‘극한 어려움’이 있다.
58. <하나님>도 인간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신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59.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늘 지켜 주시니, <본인>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 어떠한 눈물겨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된다.
60.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쳐야 얻을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며, 미래에도 그러하다.
61.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며 ‘약속받은 것’을 희망으로 기다려라.
6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그동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 고로 아직 <약속한 것>을 못 받았어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았으면 귀하게 쓰고 누리라.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누구든지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은 더 좋게 해 주기 위해 ‘약속’을 하신다.
2.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는 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3.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하나님도 ‘약속한 것’을 주신다.
4. 하나님은 약속하셨어도 <시간>이 되고 <때>가 돼야 주신다.
5.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면 안 주신다.
6.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대 역사의 것’이니, 꼭 해 주신다.
7.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로 그 약속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꼭 해야 될 일을 하여라.
8.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정말 주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사 자신의 말을 꼭 지키신다.

9.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보아라. 말하여라. ‘조건’을 지켰으면, 주신다.
10. <네가 주께 약속한 것>을 지켜라.
11.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언약을 어긴 것이니, 제대로 될 수가 없다.
12. 사람이 타락되고 사망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은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점점 사망으로 갔기 때문이다. 생각이 그릇되어 변질된 자들도 그러하다.
13. <하나님의 절대 뜻 속>에서 벗어나 변질되면, 변질된 만큼 안 된다.
14. <섭리사>와 <주>에 대하여 험담하거나 자기 주관대로 나쁘게 보고 말하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15. <자기 말>로 인해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 스스로 자기 입을 지키고, 자기 생각을 지키고, 자기 행위를 지켜라.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신다.
2.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오면, 여름철에 비가 오고 겨울철에 눈이 오듯이 약속대로 계속 진행된다.
3.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도 기다렸더니, 결국 이루어졌다. 그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다.
4. <주로 인한 약속>은 받고, ‘주와 함께 쓰고 누리기’다.
5. <약속>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 하나님은 합당해야 약속해 주신다.
6. <미련한 자>는 몸부림쳐서 ‘약속’을 받아 놓고는, 잊어버리고서 딴 생각으로 살고 있다.
7. <성경의 제일 큰 약속>은 역사 속에 ‘주를 보낸다는 약속’이다.
8.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언제든지 지켜야 ‘실제’로 받게 된다.
9. 하나님은 ‘줄 만한 조건’이 돼야 ‘약속’을 해 주신다.
10.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라. 그러면 얻는다.
11. <약속한 것>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할 일’을 해라.
12. <건강의 약속>을 이루려면, ‘건강의 책임분담’을 해야 된다.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본인>이 죄를 짓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약속대로 해 주신다.
2.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본인>이 ‘할 일’을 안 하면 못 받는다.
3.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본인>이 약속을 위해 ‘하나님과 약속한 길’을 가야 이루어진다.

4. <약속한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려면 몸부림이 필요하기에 쉽지 않다.
5.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받았어도 ‘받은 것’을 정말 못 지키고 산다. 그러면서 더 얻으려고만 한다. 그러니 더 힘들다.
6.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만 하면, ‘각종 축복’을 받는다.
7. <주와 일체>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
8. <구원>도 <휴거>도 ‘하나님이 땅에 보낸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9. <행해야> 얻는다. <생각해야> 알고, 얻는다.
10. <생각>에서 잊으면, 잃게 된다.
11. <매일 기도>다. <매일 행하기>다. <줄 때 받기>다.
12. <태만>하면 ‘될 것’도 안 된다.
13.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중심>이다.
14. 매일 <사탄>과 싸워 이기고, <유혹하는 자>와 <사상이 잘못된 자>를 조심하고 경계해라.

<2019년 5월 2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어서 실천하여라.
2.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 주셨으니, 너희도 약속대로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된다.
3. <주>를 알고 믿었으니, 변하지 않고 살겠다고 약속했다. 약속해 놓고 <변한 자>는 ‘약속을 잊은 자’다. <약속을 잊은 자>는 ‘죽은 자’다. <약속>을 잊으면 죽는다.
4. 성경에 “한 번 비침을 받고, 주를 보고 겪으며 주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계시도 받아 보고서 신앙이 탈락된 자는 어떤 이든지 다시 용서받을 수 없고,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했다.
5. 하나님은 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며 시인하고도 <믿음을 저버리고 주를 등진 자들>에게는 다시 돌이킬 기회도 안 준다고 하셨다. 이는 ‘주를 배신하고 불신한 것’이요, 곧 ‘그를 보낸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엄한 심판만이 남아 있다.
6. <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여, 주여!”하며 말씀대로 하겠다고 주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해 놓고서, 신앙을 잃고 <하나님과 주를 등진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서도 지키지 않은 고로 ‘시대의 에덴’에서 쫓겨나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된다. 그로 인해 ‘그 땅’도 ‘그 육체’도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7. <기도>하기로 약속했으니, 기도해라. <기도>해야 ‘약속받은 것’을 얻고 시험에 안 든다.
8. <전도>하기로 약속했으니, 전도해라.

9. <새벽예배>에 잘 나오기로 약속했으니, 새벽을 깨워라.

10. <이성 사랑> 안 하고 <하나님과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한 자들아. 약속했으니 지켜라.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버림받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지옥에 가게 된다.

11.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는 ‘사탄의 애인’이 되어 인(人)사탄과 영사탄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

12. <하나님과 주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아라.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은 시대마다 ‘새 일’을 해 오시다가, 역사의 주판권이 바뀌어 새 시대가 오면, <메시아>을 보내어 ‘새 시대의 새 일’을 하셨다.

2. 하나님은 항상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신다.

3. <새 일>은 과거에 하나님이 ‘선지자나 메시아를 통해 약속하셨던 일’이다.

4. 하나님이 <시대의 새 일>을 하셔도 ‘메시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5.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인 ‘사랑의 휴거를 이루는 새 일’을 하셨다. 그리함으로 주와 함께 <새 일을 행한 자들의 혼과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휴거됐다.

6. 섭리사 안에서 <새 일>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

7.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신 새 일들이 많지만, <가장 큰 새 일>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들을 변화시켜 황금 천국에 가게 해 주신 것’이다.

8. <새 시대>를 맞고, 늘 기도하고 뛰고 달리며 ‘새 일’을 자꾸 찾아라.

9. <주를 시인하고 주 앞에 고백하며 새 일을 하는 자>는 일이 어렵지 않다. ‘기쁨과 희망의 역사’다.

10. 하나님은 <월명동>에 ‘이 시대의 새 일’을 해 놓으셨다.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새 일>은 ‘생명들을 전도하여 이 시대를 증거하며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이다. 이 일을 시작한 지, 41년이 됐다.

2. 이제 <부활 역사>로, ‘부활시키는 새 일들’을 해야 된다.

3. <공적인 일>을 할 때나 <사적인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해야 된다.

4. <새 일>은 ‘새 시대 사람들’이 해야 된다.

5. 이 시대의 할 일인 <새 일>을 해야 ‘힘’이 나고, ‘역사의 차원’을 높인다.

6. <기도의 새 일>이다. <말씀을 전하는 새 일>이다. <더 새롭게 행하는 새 일>이다. 그러면 새 힘이 오고 기쁘고 즐

겁다.

7. <말씀>도 새롭게 하기다. <일>도 새롭게 하기다. <새 생명들>도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기다.
8. 지금 이때 <자기를 위한 새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생각났을 때 어서 해야 된다.
9. <에덴동산의 축소판>은 ‘자기 자신’이다. <에덴동산과 같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만들어라.
10.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시대 신부들>을 ‘이 시대의 에덴동산인 월명동’ 같이 개발하고 만들어라.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 시대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해 왔다.
2.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새 일’이다.
3. <섭리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는 것>이 저마다 해야 될 ‘새 일’이다.
4.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새 일’이다.
5. <새로운 말씀을 더 알고 전해 주는 것>이 ‘새 일’이다.
6. 저마다 <더 차원을 높여 새롭게 사는 것>이 ‘새 일’이다.
7. 저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새 일’이다.
8. 하나님과 성령님도 ‘새로운 할 일’을 행하신다.
9. <새 일>을 하게 되면, 특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땅, 가나안 복지’에 갔어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결국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계속 살게 되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아멘!

<2019년 6월 2일 주일 잠언>

1. 구원을 받고 영원한 황금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꼭 행해야 될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각종 어려움’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사탄>이 무지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방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혼란시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들>이 ‘자기와 통하는 자들’을 꾀며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불만하게 하고, 믿음을 파선하게 하는 것이다.
3. <사탄>은 ‘인간의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조건으로 삼고, 그를 꾀고 불만하게 하고 악평도 하게 하며 결국 주를 외면하게 한다.
4. <주의 이름>으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5. 사탄에게 흠 잡힐 조건을 주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

다.

6. 섭리역사를 펴 오는 동안, ‘영 사탄과 인(人)사탄들’은 신앙이 어리고 약한 자, 사탄에게 틈을 주고 흠이 잡힌 자,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 모르고 속는 자들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0~18절>과 같이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된다.

7. <신앙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원한 세계를 놓고 싸우는 ‘영적 싸움’이다. 고로 전쟁을 하는 군인이 무장을 하듯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기’를 소유하며 신앙의 무장을 해야 된다.

8. <구원의 투구>는 ‘주를 자기 뇌와 생각에서 100% 믿고, 판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9. <메시아를 믿는 자>는 뇌 속에 구원의 사상이 딱 차 있는 자로서 ‘구원의 투구를 쓴 자’다. <메시아를 불신한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은 자’다.

10. <신앙의 무기>는 ‘주를 통해 배운 말씀을 절대시하는 것’이다.

11. <말씀의 무기>다. <말씀의 검>이다.

12. <기도>도 ‘신앙의 무기’다.

13.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잊으면, 즉시 사탄이 침범한다.

14. <영적 싸움,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 이 땅에서 육신이 형통하게 되고, 영도 황금 천국을 얻게 된다. 만일 지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 혼과 영이 지옥으로 간다.

15. <주와 일체 된 자들>은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긴다. 성령은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주의 편’이 이기게 해 주시며 ‘이와 같이 주와 함께하면 이긴다.’는 징조와 표적을 보여 주셨다.

16. <사탄과 불신자와 악평자의 꾀>을 절대 이겨야 된다. <전환>

17. 왜 <신앙의 무장>을 해야 할까? ‘싸울 대상’이 있으니 무장을 하고, ‘목적’이 있어서 무장을 한다.

18. 전쟁을 할 때는 <군인>이 필요하고, <군인>은 ‘무장’을 해야 된다.

19. <군인>은 ‘총’을 애인으로 여기며 늘 반질반질하게 닦아 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최고로 좋아하고 사랑한다. 처음에는 쇳덩이를 애인으로 보는 것이 이해되지 않지만, 전쟁할 때 알게 된다. 전쟁할 때 ‘총’으로 이기기 때문이다.

20. <전쟁>을 할 때는 ‘애인’으로 이긴다.

21.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애인으로 삼고, 애인으로 싸워서 이긴다. 이와 같이 <신앙의 전쟁>에서는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자들’이 무기가 되어 싸워 이긴다.

22.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애인’이자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가 ‘무기’가 되어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23. 왜 <전쟁>을 하게 될까? 상대가 ‘땅’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을 죽이려고 건드리니 전쟁과 싸움을 하게 된다. <6.25>때도 북한이 먼저 남한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됐고, <제2차 세계대전>때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전쟁>은 ‘악의 편’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선한 편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 6000년 동안에도 항상 ‘가인 편’이 먼저 ‘아벨 편’을 건드려서 각종 싸움을 했지만, 결국 ‘아벨 편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24.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악의 편>이 먼저 ‘선의 세계’에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고, <선의 편>은 공격을 당하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이기고 종지부를 찍었다.
25.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과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선의 세계를 공격해 왔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도,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다윗 때도, 예수님 때도 항상 <사탄 편>이 먼저 전쟁과 싸움을 시작했다.
26.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는 역사가 아니었다. 사탄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어려움과 오해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역사였다. 그러나 항상 ‘절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겼다.
27. 항상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긴다.
28.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조건을 세우는 한 사람>을 쓰고 밀어붙이신다.
29. 선생은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시대마다 ‘한 명씩’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과 같은 중심인물들이 ‘전쟁의 사령관’이 되고 ‘시대의 대장’이 되어 전체를 이끌어 이기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 앞에 완벽한 한 사람>이 정말 크구나. <사탄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 한 사람>이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30.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믿고 따름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한 명의 터전’으로 시작해서 성경의 중심인물들이 절대 조건을 세우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야말로 ‘영웅 열사, ‘전쟁의 사령관’이 되어 사탄과 싸워서 이겼다.
31. 선생은 10대 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행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대둔산의 바위 같은 마음과 정신을 가져라. 대둔산의 기(氣)를 받아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결국 선생은 ‘대둔산의 장엄한 모습과 정신’을 받아 웅장하고 튼튼하게 행하게 됐다.
32. <믿음의 절대성을 가진 한 사람>이 크다. <전환>
33. <하나님의 역사>는 6000년 만에 ‘영적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하늘 편이 승리로 끝났다. 마지막 천 년 역사 때 초장에 박살을 내고 승리했다.
34. 선생은 창세기를 읽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을 확실히 알았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시대 하와>를 미리 가르치고, 사탄을 이기게 하고, 조건을 세우며 만들게 했다. 결국 <복직된 아담과 하와>가 천주 앞에 절대적인 조건을 세우고 행함으로 종교 역사 6000년 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그와 같이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신부들’로 만들었고, 모두 ‘복직된 하와들’이 되어 <복직된 아담>과 함께 승리의 역사를 펴고 있다.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해서 후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듯이, 이 시대도 <주>가 절대적으로 세운 조건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수많은 자들이 따라오게 됐다.
35. 1978년도까지는 <선생이 혼자 조건을 세우는 기간>이었다. 이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실제 행하는 조건’도 세우며 사탄을 완벽하게 이기고 나왔다. <선생 한 명>이 사탄에게 지면, <전체>가 사탄에게 진 것이 되니까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10억, 20억 마리의 사탄과 마귀들이 와도 내 손가락 하나를 못 당한다고 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다.
36. 하나님은 선생을 베트남전에도 참전하게 하시며 <신앙의 싸움>을 가르치시고, ‘담대함’을 기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선생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 전쟁터에 싸움을 말리러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실상 그와 같이 ‘신앙의 전쟁’을 잘 통솔하라고 전쟁터에 다녀오게 하신 것이다.

37. 사람은 <기질>이 있어야 된다. 군대를 다녀왔든지, 안 다녀왔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과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기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38.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신부들아, 너희는 <해>같이 맑고 뚜렷해라. <달> 같은 아름다움을 가져라.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은 정신과 행실을 가져라.” 하시며 영적으로 여러 가지의 기질을 가지고 ‘미(美)의 사람’이 되라고 권유하셨다.
39.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신다.
40.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다. 고로 <하나님께 붙은 자들>은 절대적으로 승리한다.
41. 어떤 일을 두고 엄두가 안 나거나, 혹은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는 <뜻>이 있는 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뜻이 있으면 무조건 행해야 된다.
42. <하나님과 시대 보낸 자를 따라가는 것>은 ‘뜻’이다. 고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끔은 시험에 들고 헛갈릴지라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43. <근본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르고, <근본의 말씀>을 모르니 헛갈린다.
44.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면 헛갈린다.
45.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통솔하신다. ‘그가 하는 일’에 손을 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자들은 무능하고 무지한 자들이다.
46. 모두 <그동안 제대로 못 한 것>을 엄격하게 회개해야 된다. <주체 편, 하늘 편>도 제대로 못 한 것을 회개하니, <대상 편, 땅의 편>도 제대로 못 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
47. <신부로서 신랑에게 제대로 못 한 것>을 회개하고, <형제들에게 제대로 못 한 것들>을 회개하고, <가정에서 제대로 못 한 것>을 회개해라.
48. <회개>는 ‘말’로도 하지만, ‘행실’로도 해야 100% 용서받는다.
49. <하나님께 제대로 못 한 것>도 회개해야 된다. 섭리역사 40년의 공적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해주신 것>은 없으시다.
50. <하나님이 해 주신 것>만 가지고 있으면 형통하고, 이기고, 승리한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소모시키고, 잊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51.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행해야 된다.
52. <행하는 자>가 ‘영웅’이요, ‘승리자’다.
53. <주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무장된다.
54. <섭리역사>는 ‘무한한 신앙의 싸움’을 하며 천 년 역사를 펴 나가고 있다. 기성과 불신하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과 각종 싸움을 했지만 다 이겼다. <하나님>도 우리 편, <성령님>도 우리 편, <성자>도 우리 편을 들어 주셨고, <예수님>까지 새로운 역사의 편을 들어 주셨다. <전환>
55. 선생은 15세 때부터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며 <신앙의 무장>을 했다. 선생도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

판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 하며 헛갈리는 신앙을 하다가, 15세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수도 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이상 없이 행했다.

56.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집회>도 많이 다녀 봤다. 차비가 없으니 32km 거리를 뛰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설교의 초점과 핵>은 “메시아가 곧 온다! 준비하고 예비해라!” 하는 말씀이었다.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외치고 있었다. 마치 “임신한 지 10달이 됐다.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하는 것 같았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 하며 생각이 깊어졌다. 때마다 이겨야 하는 어려움도 컸다. 그러나 “어서 배우고 나가서 집회를 해야 된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 하며 그 엄청난 추위에서 배웠다. 매일 세 번씩 냉수 목욕을 했고, 겨울에는 눈으로 씻고 닦으며 기도했다.

57. <따르는 자들>은 대둔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조건’만 세우면 된다. 그것이 곧, <무장>이다.

58. 선생은 늘 <기도>와 <말씀>, ‘두 가지의 무장’을 했다. 그때마다 꿈에 선생이 ‘철모’를 쓰고, ‘실탄과 총’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천사들만 무장하고 따르며 밤새도록 싸웠다.

59. <신앙의 무장>을 하면, 꿈에 자기가 무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총>은 ‘말씀’이요, <실탄>은 ‘기도’다.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총은 있는데 실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실탄은 있는데 총이 없다. 전자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 후자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신형 무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검>은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다.

60. <꿈>에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갓출 것을 갖추고 무장해라.

61. 하나님은 성경에 <주를 따르는 자들>을 ‘하늘의 군사들’로 표현하셨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탄 자를 따른다.’고 했다. <하늘의 군대>는 싸우는 자, 전쟁을 하는 자, 사탄과 악한 자들과 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늘에 속한 백마 탄 자, 주>를 따른다는 말씀이다.

62. <섭리사 전체>가 ‘신앙의 무장을 한 군인’이 되고, ‘국방을 지키는 군인’이 돼야 된다.

63. <주>는 사령관이 되어서 ‘시대 말씀’으로 섭리사 전원을 무장시킨다.

64. <무기로 하는 무장>이 아니라 <신앙의 삶의 무장>이다.

65. 무엇이 무기냐?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감싸 주고 지켜 주는 것>이 ‘무기’요, ‘국방’이다.

66. <신부>라면, ‘신랑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전환>

67. 누구든지 <주>께 ‘한 가지’를 지적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만 가지’를 지적하신다.

68.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대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직접 갇아 주셨다.

69.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건드리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요셉을 총리대신까지 만들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굴복하게 하셨다.

70. 골리앗 장군이 <다윗>을 건드리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다윗을 쓰고 골리앗을 돌로 쳐서 한 번에, 단 한번에, 단칼에 죽게 하셨다.

71.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대한 대로 욕도 영도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셨다.

72. 어떻게 하면 이기고 또 이길까? <주의 편>이 되면, ‘주의 힘’을 받고 ‘신’이 되어 다 이긴다.

73

74. <주의 편>이 되면 ‘신’이 된다.

7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사탄에게 넘어간다.”라고 하셨다.

76. <하나님과 주를 믿는 것>이 ‘자기 권위와 권세’다.

77. <자기 권위와 권세를 지키는 무장>이다.

78. <사랑의 무장>, <화목의 무장>이다.

79. <기도의 무장>이다.

80. <말씀의 무장>이다.

81. <찬양의 무장>이다.

82. <심신 단련의 무장>이다.

83.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뛰고 달리는 무장이다.

84. <말의 무장>이다.

85.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무장이다.

86.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전한다.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마라. <주>와 접붙이지 않으면, 평생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난다.

87. 이왕이면 다홍치마다. <주>를 믿으려면 100% 믿어라. 가려 가면서 믿지 말고, 절대시하며 믿어라.

88. <이 시대 신부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절대 사랑하는 자가 ‘이 시대 신부’다.

89.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은 사람은 ‘영원한 희망’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이 받는 고난은 미래에 받을 것과 족히 비교도 안 된다.

90. 지구상에 <하나님의 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굳히고 살아라. 그리함으로 정말로 <황금 천국>에 가야 된다.

91. <황금 천국>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더 이상 없는 극적인 작품’이다. 고로 <황금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없는 조건’을 세우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점’도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마치 임금 앞에 택함을 받고 궁으로 데려감을 받듯, 그럴 만한 조건이 돼야 한다.

92. <사랑>은 ‘느낌’이다. 느낌이 없으면 ‘자극’이 안 된다.

93. <황금 천국>은 ‘느낌의 세계’, ‘자극의 세계’, ‘기쁨의 세계’, ‘감탄의 세계’다.
94. 지금은 <하늘의 황금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다. 고로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느낌이 다르다.
95. <네 인생>을 ‘육의 세계’에서 끝내지 말아라. 그러려면, 마음을 놓지 말고 사탄과 어둠과 싸워서 이겨라.
96.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대개 시대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흔들리고, 믿음을 상실하고, 사탄의 편이 된 자들이다.
97. <주를 믿다가 안 믿는 자들>은 ‘흑암의 세계’로 간다.
98. <영의 세계>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존재하니, 절대적으로 믿고 행해라. <전환>
99.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 ‘절대성’이 있어야 된다. ‘절대적인 마음’으로 변함없이 살아야 된다.
100. <첫사랑>을 잊으면, 바로 촛대가 옮겨진다.
101.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던 사랑>을 잊지 말아라.
102. 누구든지 <자기>가 믿으면 믿어지고, <자기>가 의심하면 의심하게 된다.
103. <믿는 자료>는 ‘시대에 보낸 주’를 통해 주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자기 자신’에 의해 좌우된다.
104. <아는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다.
105.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106. <주>에 대해 안다고 하나, 믿을 수가 없다. <영광의 세계>에 있을 때는 ‘주’를 좋아하지만, 영광을 벗어나 <어려운 세계>에 있을 때는 ‘주’를 잊는 자들이 많다.
107. 하면 된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의 <병든 마음>과 <약한 마음> 때문에 못 하고, <근본>을 몰라서 못 한다.
108. 사람들은 “나는 힘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하며 갈 길을 안 간다. 달려가지 못하면 걸어서 가고, 걸어가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가야 된다.
109. 순간 <힘>을 주면, 즉시 무장된다.
110. <조금만> 더 잘했으면 됐는데, 그것을 못 하고 ‘사망’으로 간다.
111.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흔들리면, 육신은 ‘식물인간’이 된다.
112.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은 ‘하찮은 것’으로 흔들린다. 과거에 아무리 큰 환난을 겪고 어려워했어도 지나 보면 ‘별 것’도 아니다.
113. <주의 말씀>을 듣고 절대 믿고, 어느 누구의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그것이 ‘신앙의 무장’이다.
114. <시대 말씀>을 믿어라. <황금 천국 역사>를 믿어라. <흠도 점도 없는 주님>을 믿어라. 투덜대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믿고 따라라! 아멘.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새 역사>가 곧 '이상세계'다.
2. <역사>도 <환경>도 새롭게 하면, '이상세계'다.
3. <일반적인 이상세계>는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만들어야 된다.
4. <새 일>, 즉 <이상세계>는 '아주 새로운 역사'다. '새롭게 만들고 사는 세상'이다.
5. <환경>도 새롭게 만들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주'와 함께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6.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이 숨겨 놓으셔서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보낸 구원자'와 함께 그 지역을 나타내신다.
7.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새 일, 새 역사를 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보낸 자가 태어난 고향 땅'이었다.
8.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보낸 자가 태어난 곳>이 '에덴동산'이었다.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태어난 곳>이 '시대의 에덴동산'이었다.
9.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태어난 곳>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이 시대 에덴동산'이다.
10. <이단에 속한 자들>은 '에덴동산'을 만들기는 했지만, 모르고 만들었다. 혹은 에덴동산을 '공원'으로 만들어 냈거나, '대성전 건물'로 지어 냈거나, 혹은 만들지도 않았다.
11. 아담과 하와 때는 '건물'을 지어서 <에덴동산>을 만들지 않고, '거대한 자연 자체'를 <에덴동산>이라고 했다.
12. 이 시대에도 건물을 지어 놓고 에덴동산이라 하지 않고, '자연에 있는 동산'을 에덴동산이라고 이름 붙였다. <에덴동산>은 '자연'을 그대로 놓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며 개발해야 된다.
13. 어떤 종교는 '건물'을 지어 놓고 <에덴동산>이라고 한다. <에덴동산>은 하나의 '동산'이다.
14. <동산>은 '높은 산'이 아니라, '작은 산'을 말한다.
15. 다른 종교는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면서 '건물교회'를 지어 놓거나, '험하고 큰 산을 낀 성전'을 지어 놓고 <이 시대의 에덴동산>이라고 한다.
16. <에덴동산>은 '하나의 작은 동산'이다.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 새 일을 하시며 <작은 동산>을 개발하여 '이 시대 에덴동산'으로 만드셨다.
17. <아담 때>는 타락해서 에덴동산을 못 만들었고, <예수님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다. <이 시대>만 '에덴동산'을 만들었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월명동은 동산이 총 여섯 개다. 여섯 개의 동산으로 에덴동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자 형상 5개와, 남자 형상 1개'이다. <동산>이라서 편히 잘 다닐 수 있다.

2. <동그래산>은 산봉우리가 동글하다고 해서 ‘동그래산’이라고 불렀다. 예부터 <이 지역의 산들>이 ‘양의 등’같이 생겼다고, “이 지역에서 ‘양떼를 모는 목자’가 난다.”라고 말했다.
3. 소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성전은 지었고 공원은 만들었는데 ‘에덴동산’ 같은 곳은 못 만들었다.<에덴동산>은 그냥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이미 ‘시대 에덴동산으로 둘 곳의 지형’을 만들어 놓으셨어야 한다.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전을 높은 곳에 두겠다.” 하신 대로 <에덴동산>은 ‘높은 곳’이어야 된다. <동산>은 작지만 높은 곳이어야 되니, 만들기 전에는 없다. <사람>은 산을 못 만드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4.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에덴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에덴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불신하고 배척함으로 ‘에덴동산을 개발하는 새 일’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5. <첫 아담>도 ‘에덴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에덴동산을 개발하는 새 일’을 못했다.
6. 이 시대에만 ‘시대의 에덴동산’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새 일’을 하면서 ‘시대 에덴동산을 개발하는 새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7. 하나님은 <땅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 즉 에덴동산’을 둔다고 하셨다. 고로 <에덴동산>은 ‘동산’이면서도 ‘높은 곳’이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동산이면서 높은 곳’을 못 만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대 에덴동산을 만드실 때의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화산이 폭발해서 땅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이 보였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월명동의 동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보였다. 그때는 나무나 식물들도 없었고, 작은 봉우리들만 있었다. 현재 월명동 동산의 모습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형체만 있었다.이같이 하나님은 아예 태초에 <시대의 에덴동산>을 만드셨다.<월명동 에덴동산>은 ‘작은 동산’이면서 ‘400m의 높은 곳’에 있으니 신기하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다.
8. <에덴동산을 가진 자>가 아니면, ‘시대 보낸 자’라고 할 수 없다.
9. 하나님은 <에덴동산의 시대 자체>를 ‘높은 곳’에 창조하셨다.
10. 지역 연구를 해보면,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금산군(郡)’의 고도가 높고, 그중에 <월명동 지역>이 해발 300~400m로 높다. 그런데 월명동은 ‘작은 동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니기에 좋다. 월명동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에덴동산’ 같다고 한다.
11. 하나님은 <이 시대 에덴동산>에다 ‘하나님의 거대한 자연성전’을 만드셨다. 이곳은 ‘이 시대 보낸 자가 태어난 고향’이다. 지금은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이사 가고, ‘집 한 채’만 남아 있다.

<2019년 6월 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신앙의 무장>은 ‘진리 무장’이다.
2. <신앙의 무장>은 ‘하나님 무장’이다.
3. <신앙의 무장>은 ‘주 무장’이다.
4. <신앙의 무장>은 ‘성령 무장’이다.
5. <신앙의 무장>은 ‘실천 무장’이다.

6. <신앙의 무장>은 ‘주의 말씀을 듣고 절대 믿음을 지키는 무장’이다.

7. <신앙의 무장>은 ‘사랑 무장’이다.

8. <신앙의 무장>은 ‘자기 책임분담 무장’이다.

9. <신앙의 무장>은 ‘정신과 생각 무장’이다.

10. <신앙의 무장>은 ‘새노래와 찬양 무장’이다.

11. <신앙의 무장>은 ‘불평불만 없는 무장’이다.

<2019년 6월 9일 주일 잠언>

1. 선생은 <하나님 성전의 관리자>로서 늘 성전을 돌아보며 관리한다. 하루는 성전의 이곳저곳을 보다가 ‘상처가 있는 나무들’을 보고 ‘섭리사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무의 상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치료해 줬다. 그러면서 “이제는 받은 것을 관리해야 한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인식하게 됐다.

2. <자기가 받은 것>을 ‘충성’으로 관리하기다.

3. <충성>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4.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영으로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사망으로 칠 것이다.” 하셨다.

5. <일곱 교회>는 신약역사의 초창기 때부터 세워진 대표적인 교회들이다. 섭리사 초창기 때도 마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같이 도시마다 한 교회씩 대표적으로 총 8개의 교회가 있었다.

6. 지금 이 시대에도 <일곱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와 개인들>이 있으니,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7.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잊었다. 어떻게 사랑이 없이 살 수 있냐?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고 다른 자를 택할 것이다.” 했다.

8. <자기 신앙의 부족으로 인해 오는 환난>이 있다. <자기 잘못으로 오는 환난>은 ‘본인’이 이겨야 된다.

9. <날 자가 날지 못하고 걸음으로 인해 오는 환난>이 있다. 이는 본인이 ‘차원’을 높임으로 이겨야 된다.

10. 너희는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겼다. 그러나 아직도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싸우는 중에 있는 자들’이 있으니, 이기도록 기도해 주어라.

11. 섭리사에서 선생이 특히 기뻐하고 좋아하며 보는 자들이 있다. 첫째, <어렸을 때부터 믿고 따르다가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따라오는 자들>이다. 둘째, <이제 와서 열심히 뛰는 자들>을 보고 그리도 기뻐하고 좋아한다.

12. 세계의 각 나라에서 <섭리사 초창기 때부터 따라오던 자들>이 변함없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 그 기특한 모습에 정말 기쁘다. 그야말로 ‘충성된 자들’이 끝까지 따라왔다. 이들은 ‘섭리의 진짜 보물’이다. 그 사연들이 눈물겹고, 감탄스럽고, 감격스럽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시다.

13.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14. <엄마가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사랑>은 ‘아기의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굳은 마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이다. <서머나 교회>

15.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너희에게 오는 환난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다.

16. 섭리사 대부분은 환난을 이기고 승리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들>이 더러 있으니, 앞으로 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라.

17. 선생도 <섭리역사>를 펴면서 어마어마한 환난이 닳쳤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전체 상황을 보시고 ‘시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결정하셨고, 결국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겼다. 이제는 <남은 부활 역사>를 열심히 펴 나가고 있다. <버가모 교회>

18.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했다. 또한 ‘주의 정통적인 복음’이 아닌 ‘이단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를 회개하고 돌이켜라.”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육적으로 치우치는 자들>을 책망하셨다.

19. 섭리사 안에도 <자기 이론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들로, ‘그릇된 사고’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 <두아디라 교회>

20.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며 인내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가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여, 그가 내 종들을 꺾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와 같이 ‘우상화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니 회개해라.” 하셨다.

21. <우상화하는 신앙>은 제대로 모르고, 맹종(盟從)으로 따르고 굴복하며 ‘우상을 섬기듯 하는 신앙’을 말한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는 자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무조건 절하며 섬긴다.

22. <우상적 신앙>은 ‘맹종의 신앙’이다.

23. <섭리사>도 ‘우상적 신앙’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상적 신앙’을 하거나 ‘우상적 사명’을 하는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

24. <이단 종교>에는 ‘우상적 신앙을 하는 자들’이 많다. 지금은 제물을 두고 절하는 시대가 아니다. <제물을 드리며 절하는 것>은 ‘구약의 법’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난 후로부터는 절대 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돌이나 나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본인은 물론 그 자손들도 삼사 대까지 고통과 저주로 대할 것이다.” 하시며 <신상을 섬기는 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데 교회>

25. 예수님은 <사데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의 신앙이 다 죽어 가니 깨어 회개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죽는다. 흰옷을 입은 자들같이 의를 행하여라.” 하며 책망하셨다.

26. 섭리사에도 <죽어 가는 신앙을 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주와 일체 되지 않고 곁길로 가고, 주를 헐뜯고 악평하고 투덜거리며 뒷말을 하는 자들이다.

27. 주를 절대 믿고 살면,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됐어도 <살아난 신앙을 하는 자들>이다.

28. <죽어 가는 신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잡아 주고 일으켜 주어라. <라오디게아 교회>

29.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다.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조금 하다가 마는 자들이 있다. 너희가 ‘나는 부자다.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 하나, 실체는 <신앙이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눈이 먼 자>요, <옷이 없어서 벗은 자>다. <옷>이 없으면, 사서 입어라. <옷>은 ‘의’다. <의의 행실>을 해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또한 <눈>이 아프면 ‘안약’을 사서 바르듯이 <심령의 눈, 신앙의 눈>을 제대로 뜨고 살아라. 내가 너희가 미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책망하니,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응당히 책망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부하지 않고 그에게로 들어가 나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리라.” 하셨다.

30. <차지도 않고, 덤지도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31. <뜨겁게 할 때>는 뜨겁게 하고, <냉철하게 할 때>는 정말로 냉철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충성’으로 해야 된다.

32. 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

33.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였으므로 네게 면류관을 주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하셨다.

34.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것>이 ‘구원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다. 그 안에 ‘각자에게 해당되는 삶의 축복들’이 다 들어 있다.

35.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각자 개성대로 받은 것>이 있다. 이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어떤 것은 자기도 모른다.

36. <자기가 받은 모든 것들>을 뺏기지 말아라.

37. <받은 것>은 누가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자기가 간수를 못 하면 뺏긴다. 가령, 나무는 누가 뽑아 가지 않아도 관리를 못 하면 병들어 죽는다. 또 밭을 잘 가꾸지 못하면 잡초 밭이 되어 잡초들에게 뺏긴다. <전환>

38.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알고, 뺏기지 말아라.

39. 첫 번째, <구원의 면류관>이다.

40. 두 번째, <휴거의 면류관>이다.

41. 세 번째, <1000년 혼인 잔치의 면류관>이다. 성약역사가 진행되는 1000년 동안 <육>은 ‘땅’에서, <영>은 ‘황금 천국’에서 혼인 잔치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잘되게 해 주시며 ‘지상 천국, 이 상세계’에 살게 해 주시고 있다.

42. 네 번째, <건강의 면류관>이다.

43. 저마다 건강하여 수한 전에 죽지 않게 해 주고, 건강하게 뛰고 달리게 해 준 것이 ‘최고 큰 축복 중의 하나’다.

44. <건강의 면류관>은 ‘참으로 큰 면류관’이다. 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정기적인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해라. 젊어도, 절대 <자기 건강>을 자신하지 말아라.

45. 다섯 번째, <환경의 면류관>이다.

46.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이 큰 축복이다. 앞으로 <환경의 축복>을 더 크게 줄 것이다. 지금 받은 것은 '앞으로 받을 환경의 축복'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다.

47. <집 장만하기>, <환경 장만하기>는 정말 어렵다. 사람이 일생 동안 '집 한 채'를 장만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신앙의 결혼'을 해서 시대 신부들이 되었기 때문에 휴거 역사 이후로 <성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생각한 것보다 빨리 얻게 됐다. 이제는 <신앙의 집>을 장만했으니, 피곤할 때 눕고 잘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다. 이것이 정말로 '큰 선물'이자, '면류관'이다.

48. <섭리세계 자체>가 '에덴동산'이다.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보낸 자가 태어난 곳>이 '시대의 에덴동산'이다.

49. <하나님을 모시는 궁>을 차지한 것이 '큰 면류관 중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높은 곳에 두신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월명동 지역>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관'을 두셨다.

50. 사탄들은 <시대의 에덴동산>을 각종 방법으로 빼앗아 가려고 했다. 선생이 홍콩에 있을 때 이를 두고 기도하기를,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몸부림쳐 만든 곳이니, 절대 사탄들에게 내주지 마세요. 제 목숨은 빼앗아 가도 <하나님의 성전>은 못 빼앗아 갑니다." 했다. 이에 하나님은 <꿈>에 '걱정하지 말라는 계시'를 주셨다. 꿈에 코끼리만 한 황소들이 나를 들이받으려고 쫓아왔는데, 황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동아줄에 묶여 있었다. 그것을 보고 "황소의 목이 끊어지면 끊어지지, 동아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사탄의 작전이구나." 하며 마음이 놓였다.

51.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연 성전'을 뺏기지 않는다.

52.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궁, 예루살렘 성전'을 뺏겼다.

53. 6000년 종교 역사 동안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궁, 에덴동산>을 만든 것이 우리의 '크나큰 시대의 면류관'이자 '자랑거리'다. <하나님>은 '제1창조'를 하시고, <시대 사명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2창조'를 해서 만들었다.

54. 하나님은 "나의 택한 자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 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궁에 오는 모든 자들을 기쁘게 해 주고, 흥분되게 해 주고 계신다.

55. 여섯 번째, <물질의 면류관>이다.

56. 하나님은 저마다 행한 대로 '각양각색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앞으로 크고 성장하면서 더 많은 물질의 축복들을 받고 쓰고 누리게 된다.

57. 일곱 번째, <미의 면류관>이다.

58. 섭리사 사람들은 <아름다운 미의 축복, 형상과 모양의 축복>을 받았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서 빛이 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니 빛이 난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갖은 약들을 챙겨 먹어도 주름살이 지고 늙어가며 어둡게 살아간다.

59. 여덟 번째,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면류관>이다.

60. 아홉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믿는 면류관>이다.

6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더 믿어지고, 더 확신이 들고, 더 좋아지게 된 것이 정말 큰 면류관을 받은 것이

다. 어떤 자들은 주를 의심하다가 믿음이 파선되어 나갔지만, 우리는 ‘상실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다.

6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무조건 함께하시는 것>이 ‘면류관’이다.

63. 열 번째, <지혜와 지식의 면류관>이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면류관>이다.

6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혜와 지식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삼위와 일체 되라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도 주셨다.

65. 열한 번째, <전도한 생명의 면류관>이다.

6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신다. 고로 너희도 ‘아름다운 몸과 멋진 젊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어 놓고 사정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 드러라. <전환>

6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네게 해 준 것>이 ‘축복의 면류관’이다. <네가 받은 축복>을 뺏기지 말아라.

68. 첫 번째, <가치>를 잃으면 뺏긴다.

69.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70. <가치>를 모르면 <같이> 못 간다.

71. 두 번째, <게으르면> 뺏긴다.

72. 세 번째, <충성>하지 않으면 뺏긴다.

73. 네 번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같이 뺏긴다.

74. 다섯 번째, <삼위와 주>와 일체 되지 않으면 뺏긴다.

75. 여섯 번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사랑>에 미달되면 뺏긴다.

76. <휴거 역사의 생명>은 ‘사랑’이다. 고로 절대 <사랑>이 약해지면 안 된다.

77. <창조 목적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1000년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다.

78. <사랑>해서 축복해 주었다.

79.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80. <형제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는 자>는 ‘받은 것’을 뺏긴다.

81. 일곱 번째, <사탄>에게 지면 뺏긴다.

82. <정상>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침범한다.

83. 여덟 번째, <꼬이는 자, 거짓된 자, 악평자의 말>을 들으면 뺏긴다.

84. 아홉 번째, <주>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뺏긴다.

85. 열 번째, <무고하고 죄가 없는 형제>를 미워하면 받은 것을 다 뺏긴다.
86. 열한 번째, <무지>하면 뺏긴다.
87. 열두 번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실천하지 않고 세상으로 치우치면 뺏긴다.
88. 열세 번째, <건강>을 잊으면 뺏긴다.
89.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뺏긴다.
90. 열네 번째, <첫사랑>을 잊으면 뺏긴다.
91. 열다섯 번째, <담대>하지 않으면 뺏긴다.
92. 열여섯 번째, <노력과 연구>를 안 하면 뺏긴다.
93. 열일곱 번째, <자기 관리>를 100% 안 하면 뺏긴다.
94.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자기 관리'를 철통같이 해야 된다.
95.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자>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다.
96. 그동안 말씀과 교육을 들으며 받은 <은혜의 면류관>과 <심정의 면류관>을 뺏기지 말아라.
97. <자기가 받은 것>을 뺏기지 않고 누리며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 하는 별의별 것들을 주신다.
98. 과거에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함으로 받았으니, <받은 것들>을 잘 간수하여 뺏기지 말고 감사 감격하며 살아라.
99.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를 이상적으로 더 만들어라.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영화롭게 누리며 살아라.
100.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와 개인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가도록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행해라.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전도한 생명>을 뺏기지 말아라.
2. <주>를 믿고 행해야, '저마다 받은 모든 것들'을 뺏기지 않고 지키게 된다.
3. <말씀>을 전해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알고 깨달아 뺏기지 않는다.
4. <완벽>하게 행해야 '사탄'도 틈을 타지 못하고, '사람들'도 조건을 잡지 않는다.
5. <신부>가 '신랑'을 뺏기면, 말씀의 금식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된다.
6. 항상 <성령>께 간구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면, '자기가 받은 것'을 뺏기지 않는다.
7. <사탄>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여 '네가 받은 것'을 빼앗아 간다. 늘 기도하여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기다.

8.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일체 되어 행하여라.
9. 기도하고 간구하여 <자기가 받은 것>을 ‘악인과 가인들’에게 뺏기지 말아라.
10. 싸워 이겨라. 행하여라. 시험을 이겨라. 자기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
11. 신앙생활을 보통으로 하면, 뺏긴다.
12. 지난날을 생각하며,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명심하고 행하여라.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매일 행해야, 안 뺏긴다.
2. <받은 것>도 쓰지 않으면 뺏긴다.
3. 뺏기면, 고통이 온다.
4. <뺏긴 것>을 다시 얻으려면, ‘가중된 조건’을 세워야 된다. <가중된 조건>이란, 처음 얻을 때 세운 조건보다 ‘더 큰 조건’을 말한다.
5. 매일 연구하고 노력하고 잊지 않도록 행해야, <얻은 것>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된다.
6. <얻은 것>은 어디서나 쓸 수가 있다.
7. <돈>을 쓰듯이 ‘얻은 것’을 합당한 때마다 써야 된다.
8. <네게 있는 재능>과 <수고하여 얻은 소질>을 더 개발해야 뺏기지 않고, 더 알고 얻는다.
9. <가치>를 알아야 ‘얻은 것’을 잊지 않고 쓰게 된다.
10. 얻어 놓고서도 ‘귀한 것’을 모르고, 활용할 줄을 모른다.
11. 얻으려면, <성령과 주와 대화>다.
12. <얻은 것>은 자기가 버리지 않으면 안 뺏긴다. 자기가 무엇을 얻었는지 깨달아야 된다.
13. 매일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 쓰기>다. <생각>을 놀리지 말고 쓰기다.
14. <생각>을 써야 된다. 그래야 많이 얻게 된다.
15. <생각>으로 얻기도 하고, <생각>으로 잃기도 한다.
16. <자기가 소망하고 희망한 것>을 얻기만 하면 평생 기뻐 뛰며 살겠다고 해 놓고, 실상 얻으면 귀히 보고 생활하지 못한다.
17. “생각에서 얻는다.” - 이 말을 깊이 생각하여라.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좋은 침단의 기회>는 ‘순간’에 온다.
2. <과거>는 ‘기회를 기다렸던 때’다.
3. <지금>은 ‘과거에 기다렸던 기회의 때’다.
4. <과거>를 보아라.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얻었다.
5. 모두 <순간의 기회>였다.
6. 알고 보면, <기회>는 항상 있었다.
7. <좋은 때>는 모두 ‘좋은 기회’였다.
8. <신앙의 잠>을 자면, ‘기회’가 매일 와도 모른다.
9. <기회>는 ‘매일 뛰는 자’에게 온다.
10. 뛰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모르고, <기회>가 매일 오지도 않는다.
11. 그렇게도 <기회>를 찾고 기다리면서 기회가 ‘특별한 장소’에서 오는 줄 안다.
12. <기회를 기다리는 장소>도 특별하지 않고, <기회를 만나는 장소>도 특별하지 않다.
13. <기회>는 ‘전화’가 오듯이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온다.
14. <기회>는 ‘찾는 자’가 찾는다.
15. <물건>도 ‘찾는 자’가 찾는다.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다.
2. <기회>인지를 깨달아라.
3. 매일 성령께 <기회>에 대해 물어라.
4. 성령께서 어련히 아시고 <내가 원하는 기회>를 만나게 해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과 대화하고 기도하여라.
5. <성지 땅 자연성전에 갖다 놓은 모든 것>은 ‘그때마다 온 순간의 기회’를 잡고, 순간 실천하여 얻은 것이다.
6.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 즉시 <기회>를 찾아라.
7. <기회>는 순간 왔다 간다.
8. <새 시대 할 일들의 기회>가 “내가 왔다.” 하고 소리친다. 어떤 자에게는 “나는 간다. 어서 나를 잡아라.” 하며 소

리친다.

9. <평생, 한 번의 기회>가 오고 가기도 한다.

10. <기회>에 민감해라.

11. <기회>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12. <기회>는 ‘네 소원’을 성취하게 해 준다.

13. <시대의 주>는 ‘순간의 기회’다. <이 시대의 기회>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14. <기회>는 ‘때’를 맞춰서 온다.

15. <기회>는 ‘많은 시간과 날’을 두고 오지 않고, ‘순간’ 오고 간다.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어떤 기회>는 ‘1초’만에 왔다 가기도 하고, <어떤 기회>는 ‘0.1초’만에 왔다 가기도 한다.

2. <네 기회>를 만들어라.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기회’다.

4. <시대의 기회>에는 ‘소생기-장성기-완성기 역사의 기회’가 있다.

5. <기회의 때에 오는 일>이 잘된다.

6. <순간의 기회>를 자꾸 써 버릇해라.

7. <모르는 자>는 옆의 사람이 ‘기회’를 잡고 행해도 모른다.

8. <기회>는 ‘빛’같이 ‘영’같이 순간 오고 간다.

9. 정신 차려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10. <기회>를 연구해라.

11. <지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께 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고 말씀하실 때 ‘그 기회’가 네게 오고 간다.

13. <사랑하는 자>가 ‘네 기회’를 가져다 준다.

14. 몸부림치며 <기회>를 기다려 놓고서, <기회>가 왔을 때는 불신하고 배신하고 외면하고 악평하며 떠밀어낸다.

15. <기회>를 생각하고 기다리며 <성령>도 같이 생각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2019년 6월 22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담대>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2. <사랑>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3. <기회>를 기다리다가 ‘기회의 핵’을 놓치고, ‘기회의 꼬리’만 잡고 좋아하지 말아라.
4. <기회>는 혼자 잡기 곤란하다. <주>와 같이 ‘기회’를 잡아라.
5. 매일 <주>와 <기회>를 잡고 행해라.
6. <기회>를 잡으려면, 축구선수가 순간 볼을 차듯 민첩해라.
7. 배구, 농구, 탁구, 축구 등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순간의 예리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날렵하게 해야 ‘기회’를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
8. <때와 기회>다. <순간 실천>이다.
9. <기회의 때>가 왔을 때 ‘순간 실천’이다.
10. 웃을 기회, 울 기회, 회개할 기회, 감사할 기회, 결혼할 기회, 사랑할 기회를 목숨 걸고 잡고 행해야 얻고 누리며, <영>도 ‘황금 천국이 영’으로 더욱 변화되고, <육>도 잘되고 형통한다.
11. <기회의 지혜의 눈>을 떠라.
12.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상의 치타’처럼, ‘공중의 독수리’처럼 빨라야 된다.
13.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은 <메시아>를 타고 강림하신다는 말씀이다. <메시아>가 왜 빠를까? <메시아>는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세워 제일 먼저 알기 때문이다. <메시아>는 제일 먼저 알고, 제일 먼저 뛰고, 순간 빨리 움직인다.
14. <될 때>는 ‘기회’가 계속 오지만, <뛰지 않을 때>는 ‘기회’를 기다리기만 한다. 그때도 ‘기회’는 가고 있다.
15. <기회>가 와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16. <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일도, 지식, 지혜, 기술, 유능함, 충성’이다.
17. <순간의 기회를 잡는 첨단의 비법>은 ‘자기 명령’이다.
18.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며 행해라.

<2019년 6월 23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은 <성경>을 인봉해 놓으시고,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뜻’을 이루시며 새로운 역사를 펴 나가신다.
2.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세밀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 예언한 말씀’을 풀어야 된다.

3. <요한계시록 5장 1~5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과 땅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했다. 이는 <성경의 인봉>은 아무나 풀지 못하는데, ‘다윗의 자손 중의 한 명’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고 역사를 펴 나간다는 말씀이다. 곧 신약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을 이루고 신약역사를 펴 나간 것을 말한다.

4. <구약 때>는 많은 중심인물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 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에게도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줄 테니 내 말을 듣고 같이 살자.” 했다.

5. <새로운 역사의 주인>을 믿고 따르면, 구시대 급에서 ‘주인의 급’으로 벗어나게 된다.

6. <유대인들>은 ‘종급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자녀급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7. <주인의 아들>이 나타나면, <종>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손을 놓아야 된다. <아들>이 곧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약 때 유대인들은 ‘주인인 예수님’을 몰라보고 괴롭히다가 죽였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억울한 일이었다.

8. 지구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고 많지만 <예수님>이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모르고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모르고 죽였다는 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9. <사람>은 한 번 모르면 평생 동안 모르고, 자손들까지 대대로 모르고 살게 된다. <전환>

10. <잠언 13장 12절>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했다. 이 말은 “<생명나무>가 ‘소원’을 이루게 해 준다.”는 말이다.

11.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생명나무’다.

12.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고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생명나무’다.

13.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자기 자신>도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된다.

14.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인 <에덴동산>을 택하시고, 그중에 <아담과 하와>를 택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법을 주시며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했다.

15.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다. 이에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아담>은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했다. 또 하나님께서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 명한 과일을 먹었느냐?” 하시니, <하와>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다. 이에 하나님은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모든 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고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다.

16. 기성은 <선악과>를 ‘보기 좋은 아름다운 과일’, ‘균침이 도는 먹기 좋은 과일’로 본다. 그러나 <과일>은 비유일 뿐이다.

17. <사람>을 비유를 들어 말할 때 ‘늑대 같은 사람’, ‘황소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듯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비유로 말한 것이다.

18. <뱀>도 ‘사탄’을 비유한 것이다. <인간>을 꺾려면, 인간보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6000년 전에는 <인간>도 무지했는데, <뱀>이 ‘인간’을 꺾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간을 꺾 사탄>을 ‘징그러운 뱀’으로 비유한 것이다.

19. 하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그 특성이 더 확실하게 부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20.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펴려고 하셨다. <에덴동산의 생명나무>는 ‘아담’이고, <선악나무>는 ‘하와’였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성장하기 전에 ‘이성의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깨졌다.

21. 하나님은 <이성의 법>을 ‘가장 큰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 <이성>에 빠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과 지식과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선생은 1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둔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다.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고 클 기회였다. 그리고 커서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고백하며, 이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왔다. <전환>

23.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24. <목적>을 이뤘으면,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된다.

25. <자기 목적>은 다 이루어 봤자 ‘육의 세계’에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기 목적>도 이루면, 육신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히 누리고 산다.

26. <성경의 가장 깊은 인봉>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는 ‘모세’를 보내셨고, <신약 때>는 ‘예수님’을 보내시며 점진적으로 시대의 급에 맞게 가르쳐 오셨다.

27. 사람들은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산다. 또 <자기 소원과 목적>을 다 이루고 살아도 죽을 때는 공허하고 허무해한다.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다.

28.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2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자들>은 모두 다 똑같이 ‘허무한 삶을 사는 자들’이다. 육신으로 먹고 누리고 축복받다가 ‘육의 세계에서 허무로 끝나는 자들’이다.

30.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3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겠느냐?

32. <하나님>은 ‘이권’ 없이 행하지 않으신다.

33.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종을 올리신다.

34. <하나님>은 ‘말’로 자연을 명령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는 <임금>이 말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사장>이 말하는 대로 ‘회사’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35.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도 못 하는 존재의 세계’에 있다. 그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마어마한 사랑을 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36.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고로 <전지전능한 사랑을 줄 대상>,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37.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한 식구 같은 ‘혈통적인 관계’다. 고로 하나님은 천사들의 ‘자녀급 사랑’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다.
38. 하나님이 <이성의 사랑>을 모르셨다면, 이 세상에 ‘이성의 사랑’을 아예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39. 하나님은 <인간>과 ‘신부급 사랑, 이성의 사랑’을 누리기 위한 목적을 두고 천지를 창조하셨다.
40.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은 ‘어머니’만이 되어 줄 수 있다. ‘자녀’가 아무리 사랑해 줘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천사들’이 아무리 잘 모시고 사랑해 줘도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자>를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
41.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함으로 <하나님도 인간을 마음껏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이상세계>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을 이루고 사는 것이 <휴거>다.
42. <휴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부활되는 것’이다. ‘변화되는 것’이다.
43. <최고의 휴거>는 ‘실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환>
44.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 주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해 주러 왔다.
45.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46. <하나님>도 이 시대를 마음껏 사랑해 주시니, <우리>도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삶이다.
47. 하나님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신부>로 대해 주신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듯이 대해 주신다.
48.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신다. <하나님>과 ‘사랑 일체, 부부 일체’ 되어 육신도 누리고, 영혼도 영원히 누리는 삶을 살아라.
49. <하나님>도 <인간>도 ‘사랑’으로 살아간다.
50. <사랑의 배신>을 하지 말아라.
5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52.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절대시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면 삼사 대까지 화를 받는다.

1. <목적의 실상>은 ‘소원’이다.
2. <목적 없는 삶>은 ‘희망 없는 삶’이다.
3. <인생 일생동안 이뤄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자기 삶의 목적’이다.
4.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목적을 다했을 때 그로 인해 육도 영도 얻고 누리고,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희망이 성취된다.
5. <인간 스스로의 목적>은 성취해도 육적으로만 유익이 되고, 순간 지나가고 만다.
6. <목적>이 강하고 확실해야 강하게 행해진다.
7. <목적>을 두고, 확실하게 빈틈없이 행해야 된다.
8. <목적>은 과정에서 이뤄져 간다.
9. <생각>에서 ‘목적’이 빠지면 안 된다.
10.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목적>을 이루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11.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과 사랑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12.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을 ‘하나님 같은 인격, 지혜, 지식의 사람’으로 키워서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인간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창조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다.
13. <목적’을 이룬 자>는 ‘그 목적에 해당되는 최고 이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14. <목적>을 이뤘어도 ‘목적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목적을 이룬 가치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미한 삶이 된다.
15. 매일 더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 행하여라.
16. <생각>에서 잊으면, <목적>을 이루고도 ‘목적’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한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그 안에서 저마다 받은 분복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18. <새 시대>에 살아도 행하지 않으면 ‘새 시대 주관권’에만 있지, 새 시대에 온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 된다.
19. <목적>을 이뤘어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하면, ‘감각을 잃은 자의 삶’이 된다.

<2019년 6월 2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2.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3.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선한 열매’가 되어라.

4. <자기 목적을 이룬 자>는 ‘자기 소원’만 이루고 살다가 ‘육의 세상’에서 끝난다.
5.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산 자>는 <육신>도 세상에서 잘 되고, 그 <영혼>도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온 자들에게만 주는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랑 속에 사는 기쁨의 존재자’가 된다.
6.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을 제대로 못 살면, ‘현재’도 ‘미래’도 없다.
7.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라.
8. <인류 최고의 비밀>과 <성경 최고의 인봉>은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이며, ‘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종교역사를 하셨는지’다.
9.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만이 아시는 비밀’이다. 또 아는 자가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게 위해 세상에 보낸 구원자’다.
10.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밝히는 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다.
11.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과 <소원>을 다 이루고서도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산다.
12.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소원>을 이루고 살아도 ‘신이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인간은 왜 살까?’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
13. <하나님의 창조 목적>, 곧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른다.
14. <하나님이 보낸 자>는 늘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준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같이 이루면서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서도 인생들을 지도해 주고, 죽은 후 <황금성 천국>에서 ‘영’으로도 휴거된 영들을 지도해 주며 1000년 동안 혼인 잔치한다.
15. <성경의 맨 마지막 인봉>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역사의 보낸 자>를 통해 이 말씀을 풀고 행하여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신다.
16. 기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다. 인간의 육신도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살고, 그로 인해 그 영혼도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창조하셨다.

<2019년 6월 27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들>은 매일 ‘창조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 된다.
2. 이제는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목적을 이룬 삶>을 살지 못하면, ‘열매 없는 나무’가 된다.
3. <목적을 이룬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그에 해당되는 삶’이 온다.
4. <성령>도 <주>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신다.
5. 전심으로 <생활 속에 생명의 역사>를 살기다.

6. <할 때> 해라. <때> 지나면 ‘될 것’도 안 된다.

7. 결혼을 하고도 결혼 생활을 못 하면, 결혼한 보람이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도 ‘목적’을 이룬 삶, 휴거의 삶’을 못 살면, 목적을 이룬 보람도 기쁨도 없다.

8.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힘내서 해라. 하면 된다.

9. <성령과 주>가 할 때 하여라.

10. <할 일을 못 한 자>는 ‘꿈’도 ‘희망’도 없다.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룬 것’이다.

2. <목적’을 이룬 자>는 ‘목적’을 이룬 삶’을 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매일 목적을 이루도록 생활하며 살아라.

3. 저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도록 행하여라.

4. <자기 주관적인 목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영원한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다.

5. 하나님은 <맨 마지막 역사>에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신다. 그 기간은 천 년 동안이다.

6. 각 대학교마다 <올해 선교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라.

7.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 모두 <올해 선교의 목적>을 꼭 이루어라.

8. <목적’을 이룬 자의 삶>과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의 삶>은 너무도 다르다.

9. <목적’을 이룬 것>이 다가 아니다. <목적>을 이뤘으면, ‘목적’을 이룬 삶’을 살아야 한다.

10. <인생들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목적들을 말한다. 그 모든 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살아야 영원토록 기뻐하고 좋아하며 만족한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선악 간에 지나치게 행하지 말아라.

2. 선을 행한다고 지나치게 절제하고 행하면, ‘좋은 것’도 많이 놓치게 된다.

3.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할 말’까지 안 하면 손해다.

4. 많이 행하다 보면 실수하여 손해 간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행할 일’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5. 밤에 모기 잡는다고 모기약을 지나치게 많이 뿌리면, 호흡기에 독약이 되어 방에 못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나친 책망, 지나친 말, 지나친 운동, 지나친 행위들’로 인해 얼마나 손해가 가는지 알아라.

6. 전쟁터에서 지나치게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전우를 총으로 쏘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

7. <감정으로 행하는 자>는 ‘마음에 감정의 근성이 있는 자’다.

8.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지나치게 악평하고 배척하며 대하다가 ‘구원의 선’을 벗어나고 ‘기본 도리’를 벗어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었다.

9. 이 시대도 그러하다. 저 기성은 알아보지도 않고 <2000년 신약역사의 터전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고 예수님도 함께 행하시는 1000년 역사의 일>을 지나치게 막고 악평하며 이단시켰다. 결국 안타깝게 ‘기성의 해’도 넘어갔고, ‘새 시대로 올 수 있는 기회’도 넘어갔다.

10.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주도 어쩔 도리가 없어서 ‘시대의 어린아이 같은 자, 젊은 자들’을 데리고 새 역사를 펴 오셨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어 <1000년사 혼인잔치>를 하면서 영광으로 가고 있다.

11. 자녀들을 그리도 핍박하며 지나치게 대한 부모들이 있지만, 이들은 <새 역사로 온 자녀들의 공적>으로 인생의 해 그늘에서 ‘섭리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12. 어떤 일이든지 지나치게 행하면 ‘손해’가 되고, ‘무지 속에 상극’을 하게 된다.

13. <지나치다>라는 말은 ‘선을 넘었다’라는 말이다.

14. <선을 넘는 자들>을 보면, ‘자기가 중심하는 것,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행하다가 선을 넘게 된다.

15. 지난 섭리역사 41년 동안 갖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도 ‘격한 감정’으로 지나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만 따라왔기에, <휴거>를 이루고 <성약역사 1000년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

<2019년 7월 3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나치게 미련하게 행하지 말아라.

2. 운동도 건강을 위해, 몸을 풀기 위해, 재미를 위해 목적을 두고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하면, 어깨나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와서 수술까지 하게 되고, 그 후에는 적당한 운동도 못 하게 된다.

3. <말씀>은 ‘종교 역사의 핵심’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며, <말씀>이 ‘인생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며, ‘영혼의 양식’이다. 그런데 저 기성의 목사들을 보면, 설교할 때 ‘하나님을 중심한 말씀’에서 벗어나서 ‘철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나치게 많이 한다. 그러다 결국 ‘우매한 자들’이 되었다.

4. 각 운동부, 썬스타, 응원단, 미술부, 예술단 등 섭리사의 특수부들도 지나치게 부서의 특징에 빠져서 행하지 말아라. 그러다 ‘중심’을 벗어나게 된다.

5. 화장도 지나치게 하면, 인물이 감소된다. 만사가 그러하다.

6. 지나치게 ‘작은 일’에 신경 쓰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큰 일’을 못 하게 된다.

7. 지나친 책망, 지나친 간섭, 지나친 말, 지나친 행위는 도리어 ‘제 갈 길’을 못 가게 한다.

8. 지나치게 하다 보면, 아름다움도 웅장함도 신비함도 감소된다.

9. 지나치게 의식하고 행하다가 ‘기회’를 놓치게 된다.

10. 전도할 때도 지나치게 상대를 의식하면, 할 말을 못 하고 기회를 놓치고 만다.

11. <순간 한 번 지나가는 기회>도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조심하다 보면, 갖은 수고를 다 해 놓고도 ‘핵심적인 말’을 못 하여 생명을 뺏기게 된다.
12. <사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지나치게 미워하다가, 결국 자살했다.
13. <요시아 왕> 앞에 <느고 왕>은 ‘적’이었지만, 그 당시 ‘자기 민족을 위해 종을 울려 주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기 편’이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다가 무지 속에 상극하여, 느고 왕을 대적하다가 죽었다.
14.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온 느고 왕’을 지나치게 의심하며 대했다. 느고 왕은 요시아 왕에게 말하기를 “너희 민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싸우러 오지 않았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러 왔다. 그런데 네가 나와 싸우려 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와 싸울 수밖에 없다. 네가 나와 싸우지 않으면, 나도 안 싸운다.” 했다. 이에 요시아 왕은 싸우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는, 변장하고 나가서 느고 왕의 군대와 싸웠다. - 이 시대가 ‘하나님의 새 역사’ 앞에 그러했고, ‘섭리사 안’에서도 그리하는 자들이 있다.
15. 지나치게 ‘선’을 넘지 말고,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행하여라.
16. <차>도 <인생>도 지나치게 운전하지 말아라. 선을 넘어 지나치게 행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7. 주가 말하지 않아도, 각자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라.
18. 주가 늘 말씀하니, 그 말씀을 생각에서 잊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여 살아라.
19. 지나치게 ‘의인’ 되려다 ‘죄인’ 된다.
20. <섭리사 환난과 핍박 때>도 지나치게 위축받고 ‘행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손해를 봤다. <환난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다.
21. 어떤 일로도 위축받지 말고 행해라. 그러나 자만하지도 말고 행해라.
22. 형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너무 지나치게 보지 말고 대해라.
23. 아닌 것도 처음에는 몰라서 말하게 되고, 오해하고 말하게 된다. 한두 번은 용서하겠지만, 계속해서 지나치게 말하면 ‘죄’가 된다. 회개하여 용서받지 않으면, ‘사탄’이 떠나지 않는다.
24. 모두 겪어 봤지만, 사람들은 지나치게 말하고, 지나치게 막고, 지나치게 양심의 선을 넘어서 혈기와 감정으로 행한다. 그러다 결국 자기 스스로 깊은 함정에 빠진다.
25.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26. 칼도 지나치게 갈면, 오히려 칼날이 무뎈진다. 만사가 그러하다.
27. 더 잘하려고 하다가 지나치게 하여, ‘한계’를 넘어가 버린다.
28. <지나치게 잘해 주는 것>도 문제, <지나치게 잘 안 해 주는 것>도 문제다. 둘 다 지나치면 해가 된다.
29. 선생도 지나치게 사람들의 건강을 챙겨주다가, 어깨 근육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기도하고 치료하여 이제 거의 나아간다. 그래서 “이제 손 떼겠다.” 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고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지나치게 손 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30.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섭리사 전체’를 보고 말씀하신다. 저마다 ‘지나친 것’이 있다. 이것을 찾고 고쳐라!

31. “지나치게 행하지 말아라.” - 이 말씀이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 다 걸린다.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중심하면 안 된다.

2.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책망하지 말아라.

3. 전화도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하루에 수십 통씩 통화한다.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도 없다. 그런 전화는 그렇게 지나치게 안 해도 된다.

4. 시간을 지나치게 탄 데 쓰지 말아라.

5. 지나치게 불만 불평하지 말아라. 모세 때 신광야에서 불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세계, 가나안 땅에 못 갔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불만 불평하고 악평하는 자들은 희망의 이상세계를 못 이루고, 형벌 받고 사망으로 가서 영원히 고생한다.

6. 지나치게 관리하지 말아라.

7. 지나치게 보고하지 말아라.

8. 지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나친 것의 10배, 100배로 형벌하신다.

9. 기성은 섭리사를 정말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나치게 안 믿고, 지나치게 험담하고 이단시한다. 모르고 했어도, 결국 행한 대로 받는다. 앞으로 받을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도 받고 있고, 그들이 계획한 일들이 결국 화로 변하여 손해가 된다.

10.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지 않고 지나치게 행한 자들은 ‘자기 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대가>가 오기 시작하면, 즉시 ‘그 육신’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워한다.

11. 기성은 섭리사를 지나치게 이단시하고 대하더니만, 결국 ‘1000년 역사 최고의 희망’을 놓치고 ‘황금 천국’을 잃었다.

12. 지나치면 다 손해다. 만사의 모든 일이 다 안 된다.

<2019년 7월 7일 주일 잠언>

1. <주>가 자주 나타나면 사람들은 인성으로 흐르고, 자기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2. <주>를 볼수록 더 크게 보고, 볼수록 더 위대하게 보고, 볼수록 더 가치 있게 봐야 된다.

3.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중하게 여기느냐가 <강도>다.

4. <보석>도 ‘강도’대로 순위가 결정된다. <최고로 강한 다이아몬드>는 ‘돌 1톤을 쌀 한 톨 크기로 축소시킨 강도’다.

5. <신앙>도 ‘강도’를 높여야 된다.
6. <기도>만 한다고 ‘신앙의 강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정신일도> 하면, ‘강도’가 바로 높아진다.
7. <몸>은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정신>은 ‘엔진’이다.
8. <강도를 높이는 것>, <차원을 높이는 것>은 ‘정신’이다. ‘생각’이다.
9.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마음>이 ‘금강석’같이 강하고, ‘대둔산 바위’같이 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육신>이 강해도 <마음>이 약하면, 안 하게 되기 때문이다.
10.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 마음을 굳은 금강석같이 강하게 해라.” 하였고, <여호수아>에게도 “네 마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해라. 담대해라.” 하셨다.
11. <몸>을 잡고, <마음>을 잡아야 된다.
12. 말씀을 들을 때도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야 잘 듣는다.
13.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14. <정신일도> 하면 ‘신’이 된다.
15. 운동도 잘하려면, 무조건 <정신일도> 해야 된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정신일도> 못 하면 실력 발휘를 못 한다.
16. <정신일도> 하면, ‘자기 재능’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
17. <뜻>이라는 것은 ‘자기 차원대로’ 결정된다.
18. 처음에는 <안 되는 것>이 ‘뜻’인 줄 알았는데 서서히 기술을 발휘하면서 깨닫고 올라오니, <되는 것>이 ‘뜻’이었다. 고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해라.
19. <뜻>은 ‘한 글자’이지만 ‘굉장히 범위가 넓은 단어’다.
20.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뜻의 실존체’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뜻’을 넣어 놓으신다.
21. <섭리역사>는 41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펴 왔다. ‘그 뜻’은 과거에 다른 종교에서는 펴지 못한 뜻이었다. <다른 종교>에서 뜻을 펴는 것을 보니, 그들은 ‘선생이 하나님께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을 펴고 있었다. <선생이 하나님께 배운 말씀>은 ‘신약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도 아니었고, ‘신약 안에서 차원 높은 말씀’도 아니었다. 마치 ‘새로운 도시’를 만들듯이, 옛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짓듯이 ‘아예 다른 세계의 말씀’이었다.
22.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시대 주관권의 핵심자>에게만 알려 주시고, 그 주관권에서 발전해 가면서 더 알게 하신다.
23.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목시’다. 고로 ‘성경’을 잘 풀어야 된다.
24. 모든 종교는 <성경의 근본>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뜻’을 뿔다. <성경>을 풀기는 풀었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풀

었다. 그러면 전체를 풀었을 때 안 맞다.

25. <진리>는 ‘모순’이 없어야 된다.

26. <진리>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7.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완벽하게 행하여 역사를 편 것’과 ‘행하지 못한 대로 역사를 편 것’이다. 하나님은 그때 행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다시 행하게 하셨다.

28. <뜻>을 두고 ‘기필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환>

29.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늘 생각하면서 행하여라.

30. <생각>을 안 하면 잊는다. 다른 단어는 잊어도 <뜻>이라는 단어는 절대 생각에서 잊으면 안 된다.

31.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

32. <시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33.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입장’으로 이해한다.

34. <뜻>을 알아야 행하지, 모르면 행하지 못한다.

35.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도 계속 성령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36.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있고 보람 있다. 평생 두고두고 보아도 질리지 않고 좋다.

37.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아주 극적으로 좋아서 했어도 후에는 “내가 이것을 왜 했지?” 하게 된다.

38.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은 천 년이 가도 좋고, 기쁘고, 즐겁고, 볼수록 은혜가 되고 사랑스럽다. 전지전능하신 존재자가 앞날을 보고 행하셨기 때문이다.

39. <자기 뜻을 실천한 자>는 ‘너무나 작고 작은 자’다. 자기 유익이 될 뿐이지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온 인류의 유익이 될 수 없다.

40. 오직 <하나님 뜻대로>, <성령 뜻대로>, <주 뜻대로>다.

41. 왜 <주 뜻대로>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주’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이다.

42. <하나님의 절대 뜻>은 꼭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개성의 뜻>도 목적을 두고 행해야 된다.

43.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 <작은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

44. 사람들은 선생에게 ‘뜻인지, 아닌지’ 많이 묻는다. 문제를 두고 계산을 해 보고 따져 보면 결국 ‘답’은 있다. 어떤 것은 현재와 미래를 따져 봐야 하고, 어떤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따져 봐야 ‘답’이 나온다.

45.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찾고 행해라. <전환>

46. <하나님의 뜻>에도 ‘굽’이 있다. 자기 차원대로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대가로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
47. <하나님의 역사>라도 ‘비약(飛躍)’은 없다.
48. 선생도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어도 배울 때는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다. 40세가 넘어갔을 때 조금씩 조금씩 경제가 좋아졌다.
49. 선생은 ‘하나님의 뜻’도 점진적으로 펴 왔다. <1000년 성약역사>를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를 줄 알았는데, 청중이 한꺼번에 몰려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마치 고무풍선을 한 번 불고, 또 두 번 불고, 또 쥐고서 또 한 번 더 불고, 또 바람 안 새게 쥐고서 또 한 번 불고, 그래서 7~8번 불면 불어나듯이 조금씩 순서 있게 불어났다. 지금은 댐의 물과 같이 되었다.
50. <섭리역사>는 ‘41년’동안 컸는데도 계속 크고 있다.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1000년을 다 가 봐야 안다.
51. <천 리 길>도 한 걸음, 두 걸음부터 가야 하듯이 <자기 발전>도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52. <하나님의 뜻>은 크게 보면,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맨 마지막 역사’에서 밝히신다. 그 전에 밝혀 봤자 성장을 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 하고,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53. 작은 것이라도 ‘자기 뜻’을 이루어 줘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다.
54. <주>도 ‘주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으면, 작든지 크든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는다.
55.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신 것>은 ‘절대 사랑’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절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다.
56.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지키면, 하나님께 ‘인격’을 배우고, ‘지혜와 지식’을 배움으로 전지 전능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해서 결혼하여 ‘지혜의 왕’, ‘지식의 왕’, ‘권세의 왕’이 되어 역사를 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57.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보다 사랑을 더 크게 보았다. 고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법보다 사랑이 더 무섭다고 하는 자는 사랑에 무너진다. 그러나 선생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사랑’보다 더 크고 무섭게 보았기에 이성을 다스렸다.
58.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을 다스려라.
59.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성을 다스리는 것’이 성공이다.
60. 먼저 <신앙>으로 성장되면, 어디를 가도 ‘사랑 축복’과 ‘물질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장되지 않고 <사랑>을 깨뜨리면, ‘사랑 축복’도 깨지고, ‘물질 축복’도 깨지고, ‘자녀 축복’도 깨진다. 모든 축복권이 깨진다.
61.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실행해야 된다.
62.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을 이행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뜻을 이행한 대우’를 해주신다.
63.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이루시는 뜻>이 있다. ‘이 뜻’은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뤄야 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르고 못 이루면, 하나님은 <소수의 무리>를 데리고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시대의 혜택’이 별로 없다.

6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번 편 것을 오그릴 장사가 없고, 또 한 번 오그린 것을 결단코 펴 장사가 없다.” 하셨다. 고로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며 가신다.
65. 하나님은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도 <다윗>을 통해 할 일을 다 하고 가셨다. <전환>
66. <너의 도움과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온다.
67. 사람이 <힘>이 없으면 다 싫어진다. 취미 생활도 못 하고, 기쁨도 없다.
68.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힘’이다.
69.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힘’이다.
70.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며 산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마음 놓고 충분히 이루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
71. <하나님의 권세>만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72.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뒷마당에서 끼리끼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은 ‘자기 뜻을 펴는 자’들이다.
73. <하나님의 뜻>을 편다고 해서 ‘자기 권세’, ‘자기 재산’, ‘자기 사랑’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하면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육신의 세계’에서 끝나고 만다.
74.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의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하늘나라로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다만, 하늘나라는 영적 세계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동전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
75.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죽어서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도 써먹지 못한다. 마치 감옥에 가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못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은 ‘생명권’으로 가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손해냐.
76. 어차피 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라.
77.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빼지 말고 꼭 넣어 놓고 하여라.
78.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는 맛’이 없다.
79. 세상에서 아무리 큰 재벌, 정치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결국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다.
80.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듣지 않고 죽은 자>는 한 명도 없느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하고, ‘만물’로 전하고, ‘양심’으로 전했노라. 고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해도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을 판단하느니라.” 하셨다. <전환>
8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공의롭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했다(사25:1).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너희의 뜻을 하나님께 두어라.

82.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해 놓고,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83. <사람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84.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깨우쳐 주시며 ‘뜻이 있는 길’로 가게 하신다. 그 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뜻을 부합하여 그 길을 가게 하신다.
85. <예수님>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라면 죽지 않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끝내겠습니다.” 했다.
86. <예수님이 가장 크게 이룬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십자가를 질 때는 원망할 여건이 많았지만, 결국 새롭게 하여 깨끗해지니 오히려 좋은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
87.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했다(벧전4:19).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도 받아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88.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다(롬12:2).
89.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며,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 <시편 40장 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고 했다.
90.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어떤 것이 뜻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성령>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91.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뜻’인데,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다. 이는 ‘하나의 세례요한 격’으로, 참고 견디면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온다. 고로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해라.
9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뜻>을 실천해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고, 매일 기쁨과 사랑 거린다.
93. <너희 자체>가 ‘뜻’이니, 가는 곳마다 ‘뜻’이 펼쳐진다. 교회 안에 있는 것만 ‘기쁨’이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실천할 때도 ‘기쁨’이다.
94. <뜻>은 마치 ‘조개 속에 들어 있는 진주’와 같다. ‘진주’가 없으면 조개만 먹고 끝나지만, ‘진주’가 있으면 푸짐해진다.
95. <뜻>은 ‘보석’이다. ‘다이아몬드’다.
96. <주의 말>을 듣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주와 같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서 살게 된다.
97. <창조 목적의 뜻>을 벗어나지 말아라.
9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신랑’으로 사랑하는 삶이다.
99. <3.16 휴거 결혼식>은 끝났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해야 된다. 불같은 사랑의 실천, 불같은 진리의 실천, 뜻을 실

천하는 삶이 연속돼야 된다.

100. <휴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더 좋은 휴거’,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어라.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본인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며 가신다.
2. <뜻>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3. <자기 뜻>은 ‘작은 뜻’이며 ‘한 개체의 뜻’이다. 고로 이루어도 ‘일시적인 기쁨’뿐이다.
4. <하나님의 뜻>은 ‘인류 전체를 위한 뜻’이고 ‘영원한 미래를 위한 뜻’이다.
5. <자기중심,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6. <하나님의 뜻>은 ‘과거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못한 것’을 행하여 뜻을 이루게 하시고, 혹은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뜻을 이루게 하신다.
7.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의 현실을 보고 대해 주시며, 그 시대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8.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려고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작든지 크든지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과 같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기쁨’이다.
9. <뜻>이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
10.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11.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마음>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12.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함께 행해야 기쁘고, 희망을 이루게 된다.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 마음속의 뜻>은 알기 어렵다. ‘일반적인 뜻’은 알아도 ‘깊은 뜻’은 알 자가 없다.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뜻’을 펴시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통해 ‘뜻’을 펴신다.
3. <선지자 때>는 ‘선지자’에게 알려 주며 뜻을 펴시고, <사사 때>는 ‘사사’를 택하여 뜻을 펴시고, <중심인물 때>는 ‘중심인물’을 세워서 깨우쳐 주면서 뜻을 펴신다.
4. <개인에게 해당되는 작은 뜻들>은 ‘개인’을 통해 펴신다.
5. <메시아 때>는 ‘메시아’를 통해 뜻을 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신다.
6. 인류가 종교의 역사를 시작할 만큼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택하여 종교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들을 중시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여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성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성으로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7.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뜻하신 이상세계의 뜻’을 당세에 펴지 못했다. 그러다 16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그 시대 급의 뜻’을 이루려 하셨다. 이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식구 여덟 명을 중심하여 ‘그 시대에 해당되는 뜻’을 펴셨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려 하셨던 뜻’을 <노아>를 통해 행하시는데, ‘그의 아들 함’이 노아를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다. <과거 에덴동산의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장하기 전에 이성으로 타락하여 벌거벗고 부끄러워서 숨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의 모든 행실>은 ‘부끄러운 행실’이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다. <노아>는 ‘그 시대의 의인’이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노아’를 통해 뜻을 펴셨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벗고 있었다. 그런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이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를 책망하신 것이다. 이에 <함>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중심인물이나 사명자>는 ‘축복의 권세’도 있고 ‘심판의 권세’도 있다.

8.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며, 그에게 <축복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9. 하나님은 <시대의 중심자나 사명자들>에게 ‘축복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어 행하게 하신다.

10. <구약의 중심인물>인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선지자들, 사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주어 행하게 하셨다. 그 권한으로 물이 피가 되게도 하시고, 피가 물이 되게도 하셨다.

11. 하나님은 <당세>만 생각하며 뜻을 펴지 않으신다. <과거>를 생각하며 ‘과거에 못 이룬 뜻’도 펴시고, 과거에 선조들이 축복받을 것을 행하고 가면 후손들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과거에 선조들이 잘못하고 갔으면 후손들이 ‘형벌’을 받게 하시며 뜻을 펴 나가신다.

12.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당세에 뜻을 펴시니, ‘당세’만 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없다.

13. 신약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지 못한 뜻’을 펴셨다. 곧 ‘자녀급 구원역사’다.

14. 약속한 때가 되니, 하나님은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제대로 펴지 못한 뜻’을 펴고 계신다. 곧 ‘차원 높은 신부급 구원역사’다.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늘 생각하며 행하여라.

2. <시대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다.

3. 무엇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봐도 기쁘고 사랑스럽다.

4. <자기 뜻을 실천하는 자>는 ‘너무도 작은 삶을 사는 자’다.

5. 오직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 주의 뜻’이다.

6.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 고로 ‘주 뜻대로’ 하여라.

7.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뜻’을 부지런히 찾고 행해라.

8.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두고 ‘자기 뜻’을 실천하면 희망이 없다. 황금성 천국에도 못 간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을 실천해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며, 매일 기쁨과 희망이다.
10. <하나님 창조 목적의 뜻>을 벗어나지 말아라.
11.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은 ‘완전 실패한 삶’이다. ‘육의 낙’뿐이다. ‘영원한 낙’을 누리지 못한다.
12. <하나님 천지창조 목적의 뜻>이 무엇이나.
13. <삼위와 주>를 절대 사랑하고 ‘그 앞에 사랑의 대상체, 신부’가 되어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다.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일생’을 이같이 살고, 이에 따라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같이 살게 된다. 이 혼인 잔치 역사는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1000년 동안 진행된다.
14. <삼위와 주 사랑>을 잃고 타락되면, ‘신부 자격’을 상실한다.
15. <주>를 벗어나면, ‘신부 자격’을 상실하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된다.
16. <이상세계>가 계속되려면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산다. 그래도 <답>을 모르니, 만족 없이 산다.
2.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는 사명자>를 통해서 ‘가장 큰 뜻’을 배워서 알고, 매일 ‘그 뜻’을 펴면서 살고 있다.
3.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뜻>은 지난 구원역사 6000년 동안 이루려고 하신 ‘가장 거대한 뜻’이다. <이 뜻을 알고 펴는 자>가 ‘인생으로서 최고로 큰 자’다.
4.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뜻’을 펴신다.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뜻을 펴니 사람의 육도 영도 유익이지만,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뜻만 펴고 끝내신다.
5. <하나님의 뜻>은 ‘공의’다. ‘전체에게 유익이 되는 뜻’이다.
6. <성경>을 한마디로 하면 ‘뜻’이다. 곧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의 뜻>을 잘 풀어야 된다. 그래야 실천하여 ‘뜻’을 이룬다.
7.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현하는 존재’다.
8. <주>는 ‘주 뜻대로’ 안 하고 ‘주가 원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9. 재벌이나, 정치가나, 예술가나, 종교가나, 천문학자나, 과학자나, 세상 스타들이나, 세상에서 연애하는 자들이나, 누가 됐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루고, 영원히 허무하지 않고 기쁘고 만족한 삶이다.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써라.

2. <인생>은 ‘만들기’와 ‘쓰기’다.
3. <만물>도 <인생>도 ‘하나님 뜻대로 만들기, 제때 귀하게 쓰기’다.
4. 쓰면서 관리하기, 관리하면서 쓰기다.
5.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제대로 쓸 수가 없다.
6. <하나님 뜻대로 못 만든 자>는 어서 ‘하나님 뜻대로 만들기’다.
7. <하나님 뜻대로 만든 자>는 ‘매일 때마다 거기에 해당되게 쓰기’다.
8. <자기가 배운 것을 귀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라.
9. <자기가 배운 것>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 귀하게 써라.
10. <새집>을 짓고 귀하게 쓰듯이, <자기>를 만들고 귀하게 써라.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는 절대적인 신부>가 되어 매일 쓰여라.
12. 매일 <사랑하는 자>로 쓰여라.
13. 매일 <사랑하는 자>로 쓰이려면, 매일 새롭게 사랑해야 된다.
14.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일’을 함께해야 된다.

<2019년 7월 1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인생>을 만들기만 하고 쓰이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다.
2. <자기 인생>을 만들고도 개성대로 쓰지 못하면,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다.
3. 사탄은 악한 자를 쓰고 ‘하나님께 쓰이는 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막고, 거짓으로 거스르며 불신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신경 쓰지 말고 담대히 행하여라.
4. 자신이 귀히 쓰이도록 자기를 만들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귀하게 쓰려고 찾으신다.
5.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귀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하늘 신부’로 만들고 ‘삼위 앞에 사랑당 이’로 만들어라. 그리고 ‘신부로서 각종 할 일들’도 만들어서 행하기다.
6. 만들면서 ‘쓰는 연습’을 하여라.
7. 이 시대에 해당되게 귀하게 만들지 않았기에, 이 시대에 해당되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다.
8. 반드시 이 시대에 해당되게, ‘이 시대 주의 말씀’대로 만들어라.
9. <인생>은 ‘만들기’다. ‘쓰기와 관리’다. <만물>도 그러하다.
10. 하나님도 만들고 쓰신다. <황금 천국>도 <지구 세상>도 <인간>도 목적을 두고 만드시고 쓰신다.

11. <옷>도 만들어야 입고 쓰듯이, <인생>도 그러하다.
12. <음식>도 만들어야 먹고 쓰듯이, <인생>도 ‘합당하게 만들기와 쓰기’다.
13.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과 주의 생각>대로 귀하게 만들어야 삼위도 주도 마음에 들어서 귀하게 쓰신다.
14. 만들었으면, 늙기 전에 써라.
15. <인생의 때>라는 해가 지면, 못 쓴다.
16. 음식도 과일도 제때 안 먹으면 썩듯이, <인생>도 제때 못 쓰면 ‘자기가 가진 재능과 특기’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도 썩어 버린다. 써야 빛이 난다.
17.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쓰기다. 혼자 쓰는 자는 신부가 아니다. 그러다 축복이 끊어진다.
18. <주>를 써라.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르면서, 그를 써먹어라.

<2019년 7월 18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깨끗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좋아하며 깨끗이 쓰신다.
2. <이성>에 깨끗해야 ‘사랑’으로 쓰신다.
3. <돈>에 깨끗해야 ‘하나님의 것’을 맡기며 쓰신다.
4. <믿음>이 깨끗해야 하나님과 주가 믿고, 귀하게 쓰신다.
5. <하늘 신부>라면, 하나님께서 매일 쓰신다.
6. <하늘 신부>인데 ‘하나님’께 매일 쓰이지 못하면 지옥의 삶이 되니, 매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라.
7. 미련하면, ‘신부’로 못 쓴다.
8. <말>에 능하여, 귀하게 쓰여라.
9. <몸>을 귀하게 써라.
10. 웃으면서, <얼굴>을 ‘미’로 귀하게 써라. (주 증거자처럼)
11. <자기 몸>을 만들어서, ‘초인’으로 써라.
12. 자기를 안 쓰면, 늙어서 기능이 상실되어 결국 못 쓰고 끝난다.
13. <존재물>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써라. (개를 몸보신으로 쓰지 말아라. 시대가 발달되어 몸보신할 것도 많은데, 왜 개를 먹느냐.)
14. 성경에 <하나님께 쓰여진 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모두 ‘영웅열사들’이다.

15. <주>같이 700~800가지를 잘하여, 각종으로 쓰여라. 쓰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자들을 기쁘게 해 주어라.

16. <주>께 배워라.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배우는 것'이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써야 하늘같이 귀하게 쓰인다.

<2019년 7월 20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은 '뜻의 실존체'이다.

2. <주>는 '지상의 하나님 뜻의 실존체'다.

3. <자기 뜻>대로 살면, '실패자'가 된다. <하나님 뜻, 주 뜻>대로 살아야 '육신'도 땅에서 성공'하고, '영혼'도 황금성 천국에 올라 성공한다.

4. <하나님 창조 목적의 뜻>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절대 사랑하고, 하늘 신부 되어 매일 그 뜻대로 차원 높이며 사는 것이다.

5. <생명의 변창>이다. 이는 '주를 증거하며 주의 말씀을 전해 주는 것'이다.

6. <생각>이 늘 살아 있어 '주의 말씀'으로 온전해져라. <생각>이 약하면 흔들리고, 결국 실패한다.

7. 저마다 '충성'이다. 보통 신앙을 하면, '하늘 신부'는 못 된다.

8. 사랑해야 충성도 한다. 너희는 <하늘 신부>이니, '삼위 사랑, 주 사랑'도 극적으로 하여라.

9. 절대 사탄과 인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속으면 실패다.

10. 서로 오해하지 말고 풀고 살아라.

11. 언제나 '주 중심'이다. 기도의 대화를 하여라.

12. 생명을 전도하여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생명을 관리하여라. <생명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

13. <진리와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이다.

14. <항상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서로 의논하고, 모두에게 알려 주고 행하는 것>이 '뜻'이다.

15. <하늘 행사를 할 때 미리미리 온전하게 준비하고 행하는 것>이 '뜻'이다.

16. 매일 기도와 말씀이다. 화평이다. 계획이다. 그리고 실천이다.

17.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들이 불이 붙게 해야 잘되고 형통한다.

18.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사라진다.

19. 주와 일체, 성령의 상징체=주 증거자와 일체다. 그리고 기도해 주기다. 이것이 곧 자기를 위한 기도임을 알고 행하

자.

20. 할 일을 두고 놀지 말아라.

21. 올해도 ‘할 일의 때’가 계절같이 지나가고 있다.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대화’하며 살아라.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며, ‘자기 육신과 영혼이 변화되는 삶’이다.

22.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들>을 놓치지 말고 ‘말씀과 은혜’로 꼭 잡아라.

23. 하나님과 성령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도우시는지 깨달아라. 깨닫지 못하면, 기쁘지 않고 생명력이 없다. 깨달으면, 하나님과 성령과 일체 되어 하니 그리도 기쁘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온다.

24. 네가 어디 있는지 날마다 <주>를 잊지 말고 매일 부르며, 그의 이름과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라.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모르면 죽는다.

2.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모르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몰라서 ‘육신’이 죽기도 하고, ‘신앙’이 죽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한다.

3.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다가, 신앙이 약해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변하여 ‘신앙’도 ‘영’도 생명권에서 죽게 된다.

4. 하나님은 요시야 왕이 가장 고민했던 국방문제를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해 해결해 주려고 하셨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느고 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도 안 믿고 의심했고,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 변장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적의 화살에 맞고 죽었다.

5.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들어 주시는지 알고 깨달아야 된다.

6.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전방 지역에 나타났을 때, 요시야 왕은 그들이 자기 민족을 치러 오는 줄 알고 맞서 싸우려고 나갔다. 그때 애굽의 느고 왕은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라고 하셨다. 나는 나와 싸우는 자를 치러 왔다. 네가 나와 싸우지만 않으면 된다.” 했다. 이에 요시야 왕은 싸우지 않겠다고 하며 들어갔다. 그러나 느고 왕을 못 믿겠다고 하며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나와서 싸우다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느고 왕을 통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행하다가 그리 된 것이다.

7. 하나님은 항상 ‘행할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8.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명자를 믿고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요시야같이 마음이 변하여 변장하고 사명자와 싸운다.<사명자>, 곧 <구원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땅에 서는 ‘하나님 입장’이다. 고로 <사명자와 싸우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9.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느고의 말>을 믿지 않고 싸움으로, 결국 하나님과 싸운 것이다.

10. 이 시대 섭리역사의 국방문제는 <사탄과 인(人)사탄 문제>다. 역시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런데 모르고 싸우면, 하나님과 싸우는 격이 되어 사망에 처한다.

11. 모세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행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마음과 믿음이 변하여 모세를 원망하고 악평했다. 이로 인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사망으로 갔다. 결국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모

세>를 악평한 세대는 이상세계 가나안 복지에 가지 못했고, 그 후손들은 믿고 행함으로 가나안 복지를 차지했다.

12. 지금도 처음에는 <사명자의 말>을 듣고 좋아하며 행하다가 사탄이나 악인의 꾀를 받아 마음이 변하여 행하면, ‘육신’도 사망권으로 죽고, ‘혼도 영’도 사망권의 고통으로 넘어간다.

13.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 하신 말씀>은 ‘너를 위해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도 사명자도 너를 위해 행하셨다. 그러나 사탄의 꾀를 받고, 불평자, 악평자의 말에 꾀를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자가 된다.

14. <마음>이 변하고 <처음 행위>와 <믿음>이 깨지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15. <처음 신앙이 변치 않고 날마다 더 좋게 행하는 자>는 생명권의 빛이 나서 ‘육도 영’도 사랑의 세계에서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며 살게 된다.

16. <무지 속의 상극 세계>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때로는 ‘요시아 같은 입장’에 속하고, 때로는 ‘느고 같은 입장’에 속하기도 한다.

17.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명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를 통해 행하신다. <처음에는 잘 믿고 따르다가 처음 믿음과 생각이 변한 자들>은 하나님과 사명자와 싸우며 상극하게 된다. <처음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기뻐하며 행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과 주가 함께함으로 더 좋고 이상적인 휴거를 이루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축복받는다.

18. 때에 따라 <요시아 왕 같은 입장>에 처할 때가 있고, <느고 왕 같은 사명의 입장>에 처할 때가 있다.

19. <요시아 왕의 입장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행해 주시니,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를 통해 어렵히 알고 돕지 않으시겠느냐. 고로 이때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맡기고, 믿음의 조건을 세우고 행하며, 처음에 자기가 주와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20. <느고 왕의 입장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말씀하고 행하시니, 느고 왕이 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다고 확실히 전해 줘야 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고 행하심을 전해 줘야 된다.

21. 누구든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는 ‘사명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주’를 통해 말씀하고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때는 믿고 좋아하다가 신앙이 약해지고 처음 신앙과 사랑이 식어서 마음이 변하면, 요시아같이 착하고 선행도 ‘자기를 위해 행하며 돕는 자의 반대 편’에 서서 싸우다가 억울하게 당한다.

<2019년 7월 2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실행하신다.

2. 끝까지 믿고 행하여라.

3. <사탄의 주관>을 받으면, 패한다.

4. 오직 주와 일체 되어 이겨라.

5. <모르는 자>는 알지 못하니, 행하지 못한다.

6. 자기를 위해 해 주건만, <모르는 자>는 무지 속에 상극한다.

7. 끝까지 가야 이긴다. 승리한다.

8.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성령이 임한 자>는 끝까지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끝까지 간다.

9.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라. <모르는 것>도 ‘죄’다.

10. 모르면, 자기편과도 싸운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지 않고는 ‘마음과 생각’이 삼위께 붙지 않는다.

2.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이 떨어지니, ‘육’도 떨어진다.

3.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4. <3.16관의 이름>은 ‘성전의 모양’을 보고 지었다. <3.16관>은 3층에 기둥이 16개다. 또 쓰이는 것을 보고 지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인 휴거’를 이뤘으니, <휴거관>이기도 하다. 휴거는 ‘사랑 일체’, 즉 ‘삼위와 결혼’이다. 고로 <결혼관>이기도 하다.

5.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주관권’에 가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한다.

6.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려야 된다.

7.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도 기쁘시고 ‘자기’도 기쁘다. 그것을 ‘하나님’도 자기 몸 같이 쓰시고, ‘만든 자’도 자기 몸 같이 쓴다.

8. <자기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기다. 그러면서 ‘이상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루며 사는 것이다.

9.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도 만들고, ‘자기 몸’도 만들 수 있다.

10. 만들 때는 너무도 힘들고 오래 걸린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힘들고 오래 걸리셨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까지 과학적으로만 봐도 137억년이 걸렸고, 그 터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긴긴 역사를 두고 발전하여 형상을 제대로 갖추게 될 때까지도 오래 걸렸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총 6000년이 걸렸고, 그 터전 위에서 <천년역사 혼인잔치>를 하게 됐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행하셨다. 그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신 말씀을 듣고 만들어져서 그 구상대로 행했다.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황금천국을 이루며 가는 길>이다.

2. <시대 말씀>으로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만든 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쓰이며 살게 되고, 황금천국도 가게 된다.

3. <온전한 정신>이다. <굳건한 믿음>이다.

4.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땅과 하늘에서 받는 영광과 은혜’에 비할 수 없다.

5.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주>를 믿고 ‘행하는 믿음’이다.
6. 모르면 죽는다.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마음>을 배우며, ‘매일 실천하기’다.
7. 제대로 믿고 행할 때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길’로 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도 영도 ‘사망길’로 가게 된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주’를 통해 다 이기고 가신다. 주께 딱 붙어 행하여라.
9. 삼위일체가 너와 함께하시니, 변치 말고 담대히 끝까지 행하여라.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사탄은 ‘자기 것’으로 삼고 말하며 쾜다.
11. <마태복음 4장 8~10절>에서도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말 하길, “모두 내 것이니,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했다. 절은 굴복이다. 시인이다. 이에 <메시아 예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책망했다. 사탄은 이를 아니 도망갔다.
12. 사탄 편은 ‘자기 것’으로 아나, 하나님은 보낸 주를 통해 “모두 나 여호와와 의 것이다.” 하신다.
13. 사탄 편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악한 편도 ‘자기 것’이라고 하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선 편, 주의 것>이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저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해야 <사탄의 것, 악한 편의 것>이 안 된다.
2. <악한 편의 것>이 되면 심판이다. 사망으로 간다.
3. 자기를 <하나님과 주의 것>이라고 해야 사탄이 못 가지고 간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도 ‘악한 자’도 제 것이라고 한다.
4. 자기를 <사탄과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라. 뺏기면 ‘사탄과 마귀의 것’이 되어 사망으로 간다.
5. <자기 몸>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사망으로 간다.
6. <사랑>도 뺏기지 말아라.
7.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것’이었었는데, ‘사탄의 것’으로 뺏겼다.
8. <주>는 이긴 자라 ‘하나님의 것’이다.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안 뺏긴다.
9.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심판하신다.
10.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사망’으로 간다.
11. <본인>이 ‘하나님 것’인지 알아야 된다. <남>이 깨닫게 해 주는 것은 간접적이다.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시동엔 걸려야 된다.

12. <본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것’, ‘육체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사탄에게 뺏긴다.
13.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시인해라. 시인하면, 사탄이 못 빼앗아 간다.
14.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 이를 신조로 삼고, 본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시 하여라.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몸>으로 느끼면 ‘육신 자체’가 발달되지만,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면 ‘머리’가 발달되고 ‘혼과 영’이 발달된다.
2. <육적인 말>을 들으면 ‘육에 속한 몸’이 발달되지만, <영적인 말>을 들으면 ‘정신’과 ‘혼과 영’이 발달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께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드리듯, <몸>도 <마음>도 <혼도 영>도 삼위의 마음에 들게 좋게 만들어서 드려라. 만들어서 드리지 않고 그냥 드리면, 마치 ‘집’을 짓지 않고 ‘재료’만 드리는 격이 된다. 그러므로 받지 않으신다.
4. <사랑>을 최고로 만들어서 드려라. 성장하고 발육해서 멋있고 깨끗하게, 지혜와 지식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드려라.
5.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합당하게 할 말을 넣어 간구하여 잘 만들어서 드려라.
6.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도 <성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흠 없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어서 드려라. 그래야 받으신다.
7.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코치를 받아가며, 성령과 주와 함께 만들어서 드려야 받으신다. 자기를 잘 만들려면 꿀을 것을 끊고 ‘할 일’을 하며,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시대로 ‘사랑과 진리’로 만들어야 된다.
8. <사람의 뇌>는 생각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호기심대로 마음도 가고, 생각도 가고, 몸도 간다. 그쪽으로 ‘뇌신경’이 흥분되어서 아무 것도 아닌 것까지 좋아하고 사랑하며 목적을 두고 행한다.
9. 처음 보았을 때 ‘상·중·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고, 아예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굳혀 버려야 된다.
10.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하여, 그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하며 거기에 빠져 산다. 그러다가 ‘비진리’도 ‘악’도 ‘불의’도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
11.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며 보기 때문이다.
12. <자기 생각과 마음>을 제 맘대로 하면 사망으로 가기에, 언제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부르며 ‘그 생각’으로 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확인하며 살아야 된다.
13. <섭리사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품>을 떠나서 살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된다. 오래 가면 그 생각이 삶이 되어 ‘뇌와 생각’이 굳어지고, ‘육’을 따라 ‘혼’도 ‘영’도 그 길을 가게 된다. 흑암과 사망의 길이다.
14. <섭리사 안>에 있어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저급한 육과 영’이 되어 산다.
15. 끝까지 믿고 행하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육도 영도 ‘황금 천국’을 상속 받는다.

<2019년 8월 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무지하여 제 생각대로 말함으로 ‘입’으로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지 말아라.
2. <사탄>은 제 생각대로 말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사망으로 껴서 데려간다.
3. <의로운 자>는 ‘의로운 말’을 하여 생명권으로 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거짓된 말’을 하여 그 욕도 영도 멸하는 사망으로 가게 된다.
4. <사람>은 ‘겉’을 보면 어떤 자인지 모른다.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자인지 안다.
5. <나무>는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알고, <사람>은 ‘행위와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자인지 안다.
6. <섭리사와 주와 사명자들을 악평>하면 ‘사탄에게 핏을 받은 악한 자’요, <선평>하면 ‘하늘 편이 선한 자’다.
7.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한 자’다.
8. 하나님은 인간이 <지옥문을 열기 전>까지 ‘기회’를 주시며 생명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지옥문까지 간 후에 돌이키고 온 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라. 지옥문까지 갈 정도면, 그동안 삶을 어떻게 살았겠느냐.
9.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기만 한다. <주>를 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한 자’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
11.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고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허’를 온전하게 금하고, ‘악한 말’도 ‘무지한 말’도 하지 말아라.
12. <모르고 한 말>도 모두 ‘죄’가 된다. 고로 사탄이 껴서 욕도 영도 사망으로 가게 한다.
13. <입으로 죄를 지은 자들>은 모두 온전히 회개해라. <형제>에게 입으로 죄를 지었으면, ‘형제’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주께’도 온전히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를 떠나지 않고 괴롭히며, 사망에 가둔다.
14.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으므로 ‘양’과 ‘염소’를 쪼개신다. 말한 대로, 행위대로 ‘엄한 심판’을 하신다. 고로 회개해라.
15. <하나님>에 대해, <주>에 대해, <형제>에 대해 불만하거나 안 좋게 말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셨으니 성령과 함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여 깨끗하게 하신다.
16. <하나님>은 주인이 ‘가시나무’를 베듯이, 혹은 ‘소독하여 해를 끼치는 벌과 모기를 잡고, 해충’을 없애듯이 행하신다.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선과 악>을 쪼개어 섭리역사를 하여야 ‘아벨 편’이 더 빛이 난다.
2.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과 아세라’선지자 850명을 쪼개어 심판하여 악을 제거하니, 비가 내렸다.
3. <자기 속의 불의한 죄>를 쪼개내라.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몸의 제물’을 받으신다.
4. <하나님의 역사>는 ‘선악 쪼개기 역사’다.

5.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자>를 쪼개내신다.
6.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된 말, 그릇된 말을 하는 자>는 쪼개버리신다.
7.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들을 쪼개내신다.
8.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자>를 심판하신다.
9. <나무>가 겉모양이 아무리 예쁘고 좋아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베어다가 불태우듯이, <사람>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심판하신다.
10. <말>과 <행실>이 다르면, ‘속이는 자’다. 믿지 말아라.
11. 지도자들은 ‘주의 지체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 매일 듣고, 보고, 확인하여라.
12. 하나님은 매일 <주>를 통해 ‘표적’을 행하신다. 눈을 떠야 ‘표적’이 보이고, 들린다.

<2019년 8월 8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하여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다.
2. <열매>에도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다. 저마다 ‘같은 열매’만 맺지 말고, 각종 나무의 열매같이 수백 가지로 잘 행하여서 ‘다양한 열매’를 열여라.
3.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종목별>로 ‘각종 열매’를 맺게 된다.
4. <좋은 열매>를 보려면, 나무에 ‘퇴비’와 ‘정성’을 아끼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된다.
5. <열매>를 따기까지 어떤 나무는 4달, 6달, 8달이 걸리고, 혹은 2년, 3년씩 걸리기도 한다. (인삼을 수확하려면 2~3년이 걸린다.)
6. <과일 나무의 열매들>도 대개 3년은 지나야 ‘열매’가 열린다. <좋은 과일>을 따려면, 퇴비하고, 물을 주고, 소독하고, 열매가 많이 열렸으면 작은 열매들을 따주고, 새들이 따먹지 않게 방비해 주는 등 ‘적기에 해당되는 일들’을 모두 해 줘야 된다.
7. <신앙생활의 열매>도 그러하니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말씀의 열매>, <충성의 열매>, <화목의 열매>, <전도의 열매>, <관리의 열매>, <가르치는 열매>를 맺을 때도 ‘각종 해당되는 일들’을 해 줘야 된다.
8. <정기적인 관리>다. <할 일을 정해 놓고, 절대적으로 할 일을 하는 행함>이다.
9. <월명동의 소나무들>도 절대적으로 엄청난 퇴비를 하고 관리하여서 이같이 ‘거목 솔’로 크게 되었다.
10.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심하여 <좋은 나무>에 ‘ 좋고 품질이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봄부터 할 일을 하듯이, <자기 신앙>도 ‘때’를 놓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 <신앙>을 완성하여라. 온전히 하여라.
11. <열매>가 열리면, ‘까마귀, 까치 같은 각종 새들’과 ‘멧돼지 같은 각종 짐승들’이 따 먹는다. 이같이 <신앙의 열매>가 열리면, ‘각종 해충들’이 따 먹으니,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12. <가인 열매>가 되지 말아라. 처음에는 ‘아벨’이었어도 변하여 ‘가인’이 된다.
13.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마음>이 변하면, 가인이 되어 ‘가인 열매’가 열리게 된다.
14. <말>도 <행실>도 믿지 말고, ‘행한 것’만 믿어라.
15.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속이지 말아라. 속인다고 끝까지 속겠느냐. 속은 후에 알고 심판하신다.
16. 속이면, ‘속은 감정’으로 심판하게 된다.
17. <보낸 주>를 속이면, ‘그를 보낸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속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 행위대로 용서치 않고 심판하게 된다.
18.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잘라 불사르고, <열매 맺은 나무>를 기른다.
19.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2019년 8월 10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열매의 겉>만 보고 과일이 좋다고 하지 않고 먹어 보고 좋다고 하듯이, <사람>도 꺾어보고서 좋다고 해야 된다. 모두 다시 잘 가르쳐 주고 ‘행실’을 보고 대하게 해라.
2. “주여, 주여” 말해도 주를 잘 모른다. <이론>만 알지 말고, <실체 주>를 알게 가르쳐서 행하게 해 주어라.
3. <겉>만 보고 좋다고 하지 말고, <속>을 보고 좋다고 해라.
4. 제대로 가르쳐야, 제대로 한다.
5. 누구든지 <말하는 것>을 보고 믿지 말고, <행하는 것>을 중심하고 대하여라. <행위>를 볼 때도 모사를 쓰고 행하는지 보아라.
6. <좋은 열매>를 보려면, ‘나무’를 근본으로 알고 대해야 된다. ‘사람이라는 나무’도 그러하다.
7. 교역자들은 설교할 때 본문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겪은 것>이 있으면, 그에 해당되게 ‘짧게’ 간증해도 좋다.
8. <섭리인들이 겪은 것>도 본문말씀에 따라 ‘짧게’ 이야기해 주기다.
9. 설교할 때 <선생을 증거할 것>이 있으면, 본문말씀을 가지고서 증거해 주기다. 예를 들어 설교 내용이 ‘좋은 나무, 좋은 열매’일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선생도 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열매가 다양하다. 어떤 열매인지 증거해 주기다.
10. <좋은 열매를 여는 나무>를 증거하고 잘 대해 주듯이, 교회에서도 좋은 자들, 충성자들을 증거하며 잘 대해 줘야 된다.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육적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도 거기에 맞게 육적으로 대답하고, 어느 때는 그 마음을 시험하려고 떠보는 말을 하기도 한다.

2. 그러나 <근본을 두고 행할 때>는 ‘주 뜻대로’ 행하신다.
3.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가 성경에 비유로 하신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생각하고 행한다.
4.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리 떡’은 실제로 ‘보리로 만든 빵’이다. 그러나 한국 성경은 ‘떡’으로 번역되었다.
5. <이스라엘의 떡 개념>과 <한국의 떡 개념>이 실제로는 다르다.
6.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실제로 ‘어떤 뜻’을 두고 말씀하셨는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7. <비유로 하신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8. 어느 때는 아프다고 말하니 ‘육적으로 아픈 것’만 생각했고, 어느 때는 ‘영적인 것’을 두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알아듣고 행했다. 그러니 주님의 심정이 답답했다.
9. 어느 때는 ‘주가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데 오해하고, 고깝게 듣고는 서운해 하며, 자신에게 해가 되게 생각하기도 했다.
10. 주가 하는 말에 오해를 안 하면, 그때 주는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11. <주가 지난날 해 준 것>을 잊으면, 영육이 죽어간다. 은혜를 받았어도 상실하기 때문이다.
12. <주가 지난날 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영육이 죽어가는 원인>이 있으니, 사람은 심리적으로 ‘받은 것’은 뇌에서 잘 잊어버리면서, <자기가 해 준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3. 무지하여 <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해 준 것>이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모르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한다.
14. <구원받은 그 가치>는 엄청나다. <그 은혜>는 일생동안 갚아도 못 갚는다. <사망에 처할 자들>이나 <구시대에 처해 살 자들>을 구원해 준 것이다. <시대 구원을 받고 휴거된 자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 1000년 동안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5. <휴거>는 ‘자기 의’나 ‘자기 행함’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16. <휴거>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계획’과 ‘주의 공적과 가르침’으로 된다.
17.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 ‘사탄에 속한 이론’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 시대에도 <육신 부활을 한다는 기성의 교리>가 ‘무지와 사탄에 속한 가르침’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다. 모르는 만큼 사탄이 개입하고 역사하여, 사탄과 일체 되어 가르치게 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육신 부활’이 있다고 믿었다.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으니, 곧 ‘기성인들’이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믿으면서 ‘내세’는 믿지 않고, ‘현실’만 믿고 사는 아주 못 되고 무지한 자들이었다. 이 시대에도 육신이 늙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하며 ‘육신 영생’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니, 곧 ‘이 시대 사두개인들’이다.
18. <하나님과 주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은 하나님과 주를 ‘딴 세상’에서 믿고 산다.
19. <이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구시대 기성의 교훈을 지적하며 외친 주님의 말씀과 시대 신부들이 외친 말씀>이 ‘12000 광주리’도 넘는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며 말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했다.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꼬투리를 잡으려 함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여 줘라.” 하니, 바리새인들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왔다. 예수님이 “이 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다. (마 22:15-22)
2.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3. <감사하는 것>도 누구에게 드려야 할지, 자신들이 잘 안다.
4. 십일조로 감사하고, 행사 때 감사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심에 감사하는 등, <감사할 것>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잘 안다.
5. 꼭 <돈>으로만 감사해야 감사가 아니다. <행실>로도 감사하기다.
6. 항상 하늘 앞에 <사랑>으로 감사하기다. 특히 삼위일체 앞에 <사랑>으로 감사하여라.
7. 생각해 보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감사 거리’다.
8. <감사할 것>을 감사해야 ‘사탄’도 떠나간다.
9. <불만불평>은 ‘사탄에 속한 것’이다.
10. 교역자들은 겪은 것을 간증해 주기다. 특히 ‘주 앞에서 시험을 치른 내용’을 말해 주어라.
11. <한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하고 ‘동문서답’한다.
12. <같은 말씀>을 들어야 ‘다툼’도 ‘다른 주장’도 안 하게 된다.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잘하면 30년이나 더 살 것도, 잘못하면 30년이나 일찍 죽는다.
2. 성경도 잘 해석하지 못하고 행하면 오히려 죄만 짓고, 그 죄의 대가만 받는다. 잘 해석하고 살면 그 대가로 희망을 이루고 기뻐하며, 그 영혼이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
3. 사명자만 그 일을 알듯이, <구원자>만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 준다.
4. <귀한 것>도 귀하게 깨닫지 못하면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유익이 없다.
5. <자연성전에 만든 것들>도 ‘귀한 사연’을 모르고 쓰면 귀하게 쓰지도 못하고, 많이 쓰지도 못하고, 은혜와 감동도 적고, 유익도 아주 적다.
6. <약수>도 아예 없었다고 생각해 보아라. 얼마나 귀한지, 아예 몰랐을 것이다.
7. 병으로 고생하는 자, 각종 문제로 고생하는 자들, 죽을 자들이 ‘약수’로 해결했다.

8. <약수>도 ‘귀하게 알고 깨달은 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한다.
9. 얼마나 귀한지, ‘겪어 본 자’는 안다.
10. <깨달고 행하는 자>만 더 사용하고 먹고 행한다. <주>도 그러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11. 무엇이든지 <만든 것의 가치>를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100배 더 사용한다.
12. <인생>도 1년이라도 제대로 만들면, 100년은 사용한다.
13. <자연성전을 만든 수고의 100배>는 사용해야 된다.
14. <귀하게 만든 자>만 귀하게 보고 깨달고, 100배, 1000배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며 사용한다.
15. <41년의 섭리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축복과 선물 중의 최고로 큰 축복과 선물>이 ‘삼위일체의 전, 월명동 자연성전’이다.
16. <자연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만큼 귀하게 사용한다.
17. 신약 때는 ‘하나님과 주의 몸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뺐겼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낸 메시아를 따르지 않음>으로 뺐긴 것이다. <메시아를 믿고 따른 새 시대 사람들>만 ‘주’를 뺐기지 않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른 자들>만 ‘주’를 뺐기지 않고, ‘시대 성전’을 뺐기지 않고, 자기라는 ‘육신의 성전’을 인(人)사탄과 영(靈)사탄에게 뺐기지 않는다.

18. <주를 믿기는 하는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주’도 뺐기고,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의 성전’도 뺐기고, ‘시대 하나님의 전과 주의 전’도 뺐기게 된다. <섭리사를 등지고 나간 자들>이 그렇게 되었다. <주>를 믿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행하여라.

<2019년 8월 1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주와 행하는 것들>이 모두 ‘표적’이다.
2. <성지 땅 자연성전에서 성령과 주가 행하는 것들>이 모두 ‘이 시대 표적’이다.
3. <주와 같이 행하는 일들>이 실상은 모두 ‘표적’이다.
4. <성경에 비유를 들어 말한 것들>을 ‘비유’가 아닌 ‘실제’로 알고, 그것을 표적이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 ‘표적 신앙’을 하게 되고, 그리함으로 ‘바리새인 같은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된다.
5. 예수님은 자신의 말에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자들이나 시험하려는 자들이 무엇을 물을 때나,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비유한 근본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6.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유대 종교인들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이단시켰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7.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불신하고 이단시한 자들이 문자대로 주장하니,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지 못하고 ‘비

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런데 기성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문자 그대로' 알아듣고 설교하고 가르친다.

8. 어떤 말씀은 때가 되어 시대 주가 오면 풀어 주라고 '비유'로 인봉하여 말씀하기도 하셨다. 이 말씀에 따라 <시대 주>가 와서 '자신에 관한 것'을 풀어 주기도 한다.

9. <메시아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온다는 비유>도 '오신 주'가 푼다. 자신이 '하늘의 흰 구름'을 타고 안 오고 '사람 구름'을 타고 나타났고, 또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을 타고 나타났으니, <사람>이 '구름'임을 깨닫고 가르쳐 준다.

10. <하나님은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도 '오신 주'가 푼다. <하나님이 주 자신을 타고 빨리 행하시는 것'을 직접 겪고, 알고, 풀어서 가르쳐 준다.

11. 하나님이 '주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풀어서 가르쳐 준다.

12.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 준다.

13. <신약에서 행할 일>을 '구약'에서는 모른다. <성약에서 행할 일>도 '신약'에서는 절대 모른다.

14. 성약 때 메시아가 와서 때를 따라 행하며, 성경을 풀어나간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주인'이 아니니, '성경의 근본'은 풀 수가 없다.

15. 세상에서 누가 지식과 지혜가 많은 자냐. <성경을 푸는 자>가 최고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자다. 성경을 풀고 행하는 대로 '육신 일생'뿐 아니라 '영혼의 운명'까지 좌우되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이 보낸 자, 주>가 오면, '성경에 자신을 두고 예언한 인봉된 말씀'을 제대로 풀고 행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 성약의 뜻'을 편다.

17. 그는 신약시대 예수님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여, 따르는 자들과 함께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간다.

18. <시대 하나님의 뜻>은 '주를 따르는 자들'만 알지, '따르지 않는 자들'은 알 수가 없다.

19.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자>가 다른 시대에도 다시 올 것으로 절대 믿는다. 고로 때를 따라 <다른 시대>가 와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뜻을 펴도 정말 모른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사람을 보낸 것>이 실상 '자기가 믿는 자가 온 격'임을 모르니, 하나님이 뜻을 펴도 모르는 것이다.

20. 구약시대 유대 종교인들도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불과 칼'을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오셨다. 때가 되어 <다른 시대, 새 역사 신약시대>가 왔고, 하나님은 <신약시대 사람인 예수님>을 보내어 <새 시대 말씀>을 전하여 믿고 따르게 함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행하신 것'을 모르고, 그렇게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악평하고 이단시켰다.

21. 이 시대 기성인들도 그러하다.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같이 살 것이라고 믿고 산다. 그러나 또 <새 역사 성약시대>가 왔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택한 자>를 보내어 <새 역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성약의 역사'를 이루신다. <따르는 자들>만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시대 신부급 구원과 휴거'를 얻고, 그 영혼이 '황금성 천국'으로 가게 된다.

22. 하나님의 재림과 휴거 역사뿐 아니라, 세상만사 그 어떤 일을 두고도 <모르는 자들>은 마찬가지다. <알고 행하는 자들>이 평생 행하고 갔어도, 자신들은 모르니 제대로 배울 때까지 평생 모르다가 죽는다.

23. <아는 자들>만 믿고, 행하고, 누리고, 기뻐하며 살다 간다.

2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월명동 자연성전>을 만들게 하여 모두 쓰게 하셨어도, 한 마을에 사는 석막리 사람들은 20년 이상 모르고 살았다. 그러다 요즘에는 <믿고 따르는 자들 일부>가 같이 쓰고 기뻐하며 산다.

25. <주를 모르는 자>는 늘 보아도, 그가 '긴긴 역사를 두고 기다린 주인'이라는 것을 모른다.

26. <모르는 자>는 날씨가 각종 사건들을 두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와 함께 행하신 일들'인 것을 모른다.

27. <역사>는 주와 함께 직접 행하지 않으면, '근본'을 모른다.

28. <주와 같이 행하지 않은 자>는 '주의 근본의 뜻'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풀고 행한다.

29. 성경을 봐도 <주와 같이 직접 행한 자들>은 바로 알고 따라갔고, <주와 같이 행하지 않은 자들>은 달리 생각하고 자기 주관으로 행하며 따라갔다.

30. <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시대 말씀을 들음>으로 '신부 단장'이다.

2. <행함>으로 '신부 단장'이다.

3. <배움>으로 '신부 단장'이다.

4. <신부 단장>이란,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5. 단장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6. 단장할수록 단장할 것이 많고도 많다.

7. 행하면서 단장해야 된다.

8. 주가 원하는 대로 신부 단장해야 된다.

9. 주가 원하는 대로 <주의 몸 된 교회>를 만들듯이, 주가 원하는 대로 <주의 몸 된 자기>를 만들기다.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단장하고, 만들고, 관리해야 된다.

2.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난다.

3. <야심작>도 상단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니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흙이 무너져 내려서 돌이 기울었다. 그래서 어제 제자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청소하고, 기울어진 돌도 손대서 관리했다.

4. <야심작>도 이제 깔끔하게 '신부 단장'했다. 모두 이렇게 하거다.

5. <생명>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나서 해가 된다.
6. <만드는 것>도 중하고, <단장>도 중하다. 중한 만큼 ‘관리’해 주고, ‘끝매듭’을 깨끗이 해야 된다.
7. <신앙>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성전같이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자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비해, 이제 100분의 1 정도만 단장해 주면, 엄청나게 빛이 난다.
8. 우리는 그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엄청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제 <단장할 때>다. <단장과 관리>만 한다면, 정말 빛이 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9. <신앙>과 <그동안 해 온 것들>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절대 단장’해야 된다. 안 하면, 단장 안 한 얼굴 같아서 별 볼 것 없다.
10. <단장 안 한 신부>는 <칠보단장한 신부>를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 <이 시대 하늘 신부들>은 그동안 만든 것이 있으니 ‘절대 단장’을 해야 된다.
11. <얼굴이 예쁜 미인>이라 해도 단장하지 않으면, <단장한 여자>를 따라갈 수 없다. <이 시대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12. <야심작>도 이제야 단장을 했다. 해 놓고 보니, 정말 ‘신부 단장’한 것 같았다. 섭리사 모두는 말, 행실, 마음, 생각, 기도, 말씀, 예술, 운동 등 미비한 것들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꼭 단장해야 된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 다 단장’이다.
13. <연회장>도 소나무를 심고, 각종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다 갖추어 ‘신부 단장’했다. 그러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진 비경이 되었다. <자기 자신>도 꼭 단장하기다.
14. 하루에 여섯 번 기도해야,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할 수 있다. <기도>는 ‘대화’도 되고 ‘기도’도 된다.
15. <할 일>은 꼭 ‘제때’해야 제대로 된다.
16. <큰일>을 다 해 놓고 <작은 일>을 단장 안 하니, 빛도 아름다움도 신비함도 감소되어 보는 자들의 감탄과 감격이 적고도 적게 된다.
17. 여자가 마지막에 화장하며 단장하듯이, <자연성전>도 <자기 자신>도 꼭 단장해야 된다. 그래야 <자연성전 전체>가 ‘최고의 작품’이 되고, <자기 자신>도 ‘최고의 신부 인생’이 된다.
18. 하나님도 성령님도 각자에게 계시하셨다. 고로 단장하기다.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만물>을 관리하시며, ‘사랑’으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오셨다. 단장하고 만든 대로, 시대마다 ‘뜻’을 펴 오셨다.
2.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주관권 역사>라도 ‘처음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이 달랐다. <끝>에는 ‘그 역사에 원하셨던 목적’을 정녕코 실행하신다.
3. 같은 주관권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은 <6000년의 지상 구원역사>를 두고도 <끝>에는 ‘최고 목적의 뜻’을 행하신다. <구약역사>보다 <신약역사>는 더 차원 높여 목적을 실행하셨다. 그러다 <마지막 끝의 성약역사>는 ‘하나님의 근본의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를 다 행하신다. 고로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갈고닦고 '사랑 단장,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4. <목재>를 다듬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인생>도 단장하지 않으면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지 못한다.

5. 하나님 앞에 <사랑의 존재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6. <신부>로 만들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다.

7.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어 이 땅에 역사를 시작하셨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목적'을 실행하지 않으신다.

8. <땅>에서 행했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세우시고 만드신 것이다.

9. <땅>에서 행했기에 '육에 속한 성전'뿐 아니라, <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고,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그 목적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된 것이다.

10. <단장>이 '목적'이다. '신부로서 정신, 생각, 행위 단장'이다. 그리고 <매일 단장한 삶과 사명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11. <하늘 신부>라면 삼위와 주와 하나 되어 살아야, 그로 인해 받고 누리게 된다.

12. 땅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도 <뜻>도 이루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여, 그 삶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13. 누구든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2019년 8월 2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환경>도 <자기 신앙>도 단장할 것이 정말 많다. 그 중의 위험한 것은 먼저 손질하고 고치고 갖춰야 된다.

2. <고장난 차>를 고치고 단장하지 않으면, 달리다가 사고 난다. <인생>도 <신앙>도 그러하다.

3. <단장>은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4. <집>이나 <환경>이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완성하지 않고서는 쓰기에 불편하다.

5. 완성하고 쓸 때, 제대로 쓰게 된다.

6. <미완성된 것>은 가치가 너무 적다.

7. <신부 단장>으로 '완성'하지 않고 쓰면, 쓸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8. <월명동 자연성전>도 '근본'은 다시 할 수 없으니, '만들어 놓은 것'을 더 멋있고 예쁘게 단장했다.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전능자는 '흠'이 있으면, 안 만드신다.

10. <신부>에게 '흠'이 있으면, 심정이 상한다.

11. <모순>을 모두 없애고 ‘신부 단장’이다.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이 죽는 원인>은 ‘수십 가지’다. <신앙이 죽는 원인>도 ‘수십 가지’다.

2. <신앙>은 자기가 자포자기 하고, 의심하고, 믿음을 파선하여 죽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서 죽기도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점점 실천하지 않아서 죽기도 한다. 또 주를 불신하여 죽기도 한다.

3. <주 증거>하는 만큼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이 자신에게 박힌다.

4. <증거>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증거>하는 만큼 ‘확신’하게 되고, <증거>하는 만큼 ‘증거자 편’이 된다.

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 줘라.” 하셨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보지 않아서 주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6. <구약 말씀>에 메시아가 오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 주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 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말해 줘라. 주를 제대로 알면 따라 오는데, 몰라서 안 따라온다. 모르니, 가서 전해 줘라.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따를 것이다.”한 것이다.

7. <주가 행하는 것>을 보면, ‘녹아지지 않을 자’가 없다.

8. <주의 행함>을 보고, 들어야 된다. <주>와 친해야 된다.

9. <주>를 가까이 하며 같이 행해야 된다. 희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0. <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저장된다. 고로 <주의 행함>을 보고 들으면, 결국 ‘주의 생각, 주의 사고로 꼭 차 있는 자’가 된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월명 워터파크>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빨리 갈수록 물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러니 그 물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도 빨리 가진다.

2.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실이 주와 일체 되어 빨리 갈수록 역사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 그러니 역사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도 더 빨리 가진다.

3. 그냥 보면 볼 것이 없다. 가르치고 만든 후에 보면, 정말 ‘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 <사람>도 가르치고 만든 후에 보니, ‘볼 것’도 많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유익’도 많다.

4. 수영도 가르치기 전에는 볼 것이 없는데, 가르치고 나서 보면 ‘몸’도 멋있고 ‘수영하는 모습’도 멋있다.

5. 역시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6. 사람을 가르치고 만들어 놓으니, <주의 증거자>가 되어 ‘그 모습’도 ‘증거’도 볼만 하고 웅장하고 빛이 난다. 그 빛을 따라, 청중들의 마음이 녹아져 ‘주’를 깨닫는다.

7. 주를 믿고 따르면서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

8. 과거에 하나님이 주를 통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심>을 보고 <사연>을 보아라. 이것을 깨닫고 알면, <현실의 어려움>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과 실망한 것들>을 이긴다.

9. <주를 제대로 모르는 자>가 ‘실족’하게 된다.

10. <주를 안다고 하나, 과거의 행하심과 사연을 잊은 자>가 ‘실족’하게 된다.

11. <주>는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행한다.

12. <주를 볼 때>는 ‘360도’를 다 봐야 된다. 모든 각도를 다 안 보고 몇 가지만 보면,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

13. <자기 수준과 판단>으로는 ‘주’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주>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된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14.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주>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 주신다.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께 “실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 “쪽팔리는 일이다.” 하셨다. (지금껏 <주>를 믿고 <주의 행하심>을 보면서 왔는데, 왜 ‘몇 가지’로 실족하여 ‘신앙의 울무’에 걸리느냐.)

2. 성령님께 “왜 실족하게 됩니까?” 하니, “그만큼 기대하고, 희망하고, 극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최고로 보고 살았는데, 자기 기대와 희망대로 안 해 주니 실족하는 것이다.” 하셨다.

3. 지나가는 나그네나, 자기와 상관없는 자에게는 실족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과 삶을 준 자>에게 실족하게 된다.

4. 왜 <주>께 실족하게 되는가? ‘자기 기대와 희망과 삶’을 걸고 사니, ‘실족’도 하게 되는 것이다.

5. <자기 마음>을 주고, <자기 삶>을 걸고, <희망>을 걸어 놓고 살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다.

6. 주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삶과 희망을 걸어 놓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도 실족한다.

7. 해 줘어도 <기대가 어긋날 때> 실족하게 된다.

8. 해 줘어도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실족하게 된다.

9.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실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 ‘더 좋은 세계에 간 자’가 없다.

10. 루시퍼는 하나님께 실족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내쫓으셨다.

11. 지난날 섭리 역사를 보면, ‘실족하지 않은 자들’과 ‘실족했으나 이긴 자들’만 살아남았다.

12.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실족하면, <육신 일생, 영혼 영원>까지 ‘패배자’가 된다.

13. <실족>은 실상 ‘피장파장’이다. <주>도 ‘따르는 자들’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한다. 왜? ‘기대대로 안 해서’다.

1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동안 그렇게 해 줘는데도 모르고 실족한 자들을 보시고, 기대가 어긋나서 실족하신다.

15. <지난날의 사연들>을 잊지 말아라. <주>를 증거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16. 지난날 '태풍같이 실족할 일'이 몰려 왔어도 다 이겼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힘'을 주셨다. 지금도 그러하다.

<2019년 8월 3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실족이란, 실망하는 것이다. 낙심하는 것이다. 상심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상심하지 말아라. 사라지지 말아라.

2. <주>로 인해,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3.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낙심하고 실족하게 된다.

4. 주가 맡긴 일을 안 할 때, 실족하게 된다.

5. 제 할 일을 안 할 때, 실족하게 된다.

6.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하셨다.

7. 실족하면, 희망이 사라진다.

8.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믿어 주면, 즉시 희망이 찾아온다.

9. 실족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도 사라지게 된다.

10. 세례 요한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여 '주의 주관권'에서 사라졌다.

11.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은 '증거자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다.

12.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했다.때마침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온다고 했던 메시아다." 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 주어라." 하셨다.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병어리와 맹인과 귀신 들린 자들과 고통 받는 자들을 고쳐 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했으니,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요한>에게 이것을 가서 전해 주라고 한 것이다.

13.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궁에서 입은 듯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러 다니고, 무엇을 외치고 다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하셨다.그리고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기록된 대로 <내가 나의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이 바로 '나의 길을 준비할 자'다." 하시며, <요한>을 두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책망하셨다.

14. <과거>에 '주가 맡긴 일'을 그렇게 잘했어도 <현실>에 '신앙'이 무너지면, 과거에 했던 것들까지 모두 파선된다.

15. <요한>은 '증거자'다. <증거자>가 흔들리면 '그 증거자를 따르는 자들'도 흔들린다. 예수님 때, 결국 그렇게 되었다.

16.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신약 역사의 주춧돌’이 되어 <신약역사>를 펼쳐 나갔다.

17. 이 시대도 <증거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말고 뛰어야 된다. 너희 모두 ‘이 시대의 증거자들’이다. 주가 너희에게 매일 보여 주고 말씀하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라.

18. 매일 주와 함께 행하고, 주께 고백하고, 주를 시인하고 증거해라.

19. <주가 행한 일>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고 감동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뇌가 굳어서’다. ‘마음이 강박해서’다. ‘몰라서’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다. ‘게을러서’다. ‘주를 꿰뚫어보지 않아서’다. 자세히 봐야 ‘주의 심정’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한다.

20. <주의 행하심>을 보고도 증거하지 않으면, 주도 하나님과 성령 앞에 그 사람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21. <주를 증거하는 자>가 생명들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데리고 나온다. 지금까지 섭리역사가 그러했다.

22. 주를 따르기만 하지 말고 <주로 인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라.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은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23. <주가 극히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주도 좋아하며 대한다.

24. <주가 극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나. ‘증거’다.

25. 행한 대로, 매일 받는 것이다.

26. <생각 실상의 세계>다. 곧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몸’도 움직이는 세계다. 고로 <생각>을 올바르게 하고 행하여라.

27. <생각>이 ‘하나님이 주관’을 떠나면, 즉시 ‘사탄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 <몸>도 ‘육적’으로 행한다.

28. <주>는 ‘머리’다. <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다. 고로 <그 행함>이 ‘영적’이다.

29. <증거자들>은 ‘구원받고 살 자들’로서 ‘주의 몸’이다. ‘주 앞에 육’이다. <육>은 ‘육적’으로 행한다. 고로 <머리가 되는 주>께 붙어서 살아야, 매일 육적으로 살지 않는다.

30. <주의 심정>은 말로 안 한다.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라.

31. <최고 좋은 때의 하루>가 <보통 때의 1년>보다 낫다. <지금 이때>가 ‘과거보다 100배나 더 좋은 섭리역사의 때’다. <지금 진실로 10일 된 것>이 <과거에 보통으로 1년 된 것>과 같다. 주를 따르면서, 뛰면서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뛰면서 푸는 것’이다. <주>도 그렇게 하니, 매일 ‘문제’를 풀면서 간다.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모르니, 원해도 할 수가 없다.

2. 가르쳐 주어서, 뇌신경에 습관이 되어 행하게 해라.

3. 생각을 하도록 배우고, 배웠으면 즉시 실천해라.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게 된다.

4. <좋아서 행하던 것>도 잊어버리면 행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변하여 멀리하게 된다.
5.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좋아하며 행하게 되니, 마음이 변하여 <전에 좋아하던 것>을 멀리하게 된다.
6. 나무나 분재의 꽃도 상태가 좋다가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쁘게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좋다가도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좋게 변한다.
7. <자기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상태가 좋다가도, 관리를 안 해 주면 안 좋게 변해 버린다.
8. <주께 매일 배우고 매일 행하는 자>는 안 좋게 변하지 않는다.
9.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삼위와 주께 일체> 시켜 두면, 안 좋게 변하지 않는다.
10.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해라.
11.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마음’도 ‘생각’도 안 좋게 변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길, 황금성 천국 길>을 벗어나게 된다.
12. <완성된 과일>이라도 ‘관리’를 못 하면 썩듯이, <완성된 사람>이라도 ‘관리’를 못 하면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안 좋게 변하여 ‘영원한 황금성 천국 길’을 벗어나게 된다.
13.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안 좋게 변하지 말아라.
14. 존재할 때까지 온전하게 존재시켜라. 이것이 ‘법칙’이다.
15. <완전하게 지은 집>도 ‘관리’를 안 하면 썩는다. <신앙>도 <사람>도 그러하다.
16. <온전한 사람>이라도 때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에서 벗어나게 된다.
17.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기다. 쓰기다. 관리하기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존재시키기다.
18.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같이, 이제 우리도 ‘시대 가을 같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익어가야 한다.

<2019년 9월 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온전히 확실히> 알아라.
2. <부분적>이란, ‘일부’를 말한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농부’라는 것은 아는데, ‘무슨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는 것과 같다.
3. 그렇다면 <얼굴을 보듯 확실히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 사람이 과수원을 하는 농부인데 포도 농사만 집중적으로 짓고 사는 여자이고, 포도 중에서도 청포도 농사만 짓는다.” - 이 정도는 알아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얼굴을 보고 확실히 알듯 하는 자>다.
4. <부분적으로 아는 자>는 ‘깜깜한 야밤에 경치 보듯 하는 자’다.
5. <사람>이고 <성경>이고 <말씀>이고 100%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6.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 놓으면, 세운 돌이 넘어지듯 넘어진다.

7. <부분적으로 아는 자>는 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
8.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부분적’으로 알았기에, <자기가 증거할 메시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았다.
9. <자신>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아도, <메시아>나 <메시아의 증거자>나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도 한다.
10. <구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와 ‘새 시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안다.
11. <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부분적으로만 아는 원인>이 있으니, 이는 ‘성약의 메시아를 맞지 못해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실정이다. <메시아를 맞고 사는 자>만이 시대를 확실히 알고 행할 수 있다.
12. <새 역사의 이때를 맞고서도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은 ‘자신들이 배워야 될 책임 분담을 못 해서’다.
13. 메시아가 오면, ‘종교 세계의 문제’뿐 아니라 ‘세상의 부분적으로 알던 것’까지 확실히 알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께서 ‘메시아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시대에 인봉 된 것’을 확실히 풀어 주신다.
15. 지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16. <월명동의 소나무들과 각종 작품들>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사 왔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획적으로 행하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17.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행할 때는 몰랐던 것>도 주의 날이 오면 ‘확실히’ 알게 된다.
18. <성경의 깊은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 제대로 행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대충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 주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확실히 알도록, 교역자들은 설교할 때 빠진 것들을 증거해 줘야 된다.
20. <자기 사명을 100% 알기>다. 세례 요한은 ‘엘리아’는 아니었지만, ‘엘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였다. 이것을 반드시 알았어야 했다. 시대 신부들도 그러하다.

<2019년 9월 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때가 돼야 온전히 알고 행한다.
2. 온전하게 하려고 해야 온전하게 행하듯이, 온전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온전하게 알게 된다.
3. 온전하게 알려면, 온전하게 알 때까지 반복하면서 <자연성전 야심작> 쌓듯이 해야 된다.
4. <온전하게 한 것>과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5.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온전하게 아는 듯 말하지 말아라.
6.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주께 보고하지 말아라.
7. 사람도 물건도 온전하게 해 놓고 사용해라.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도 그만큼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

8.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 쓰기 위해서다.

9. <온전한 자>는 ‘사랑 휴거’된다.

10. <사랑>에 ‘온전’하여라.

11. <믿음과 행함>에 ‘온전’하여라.

12. <부분적으로 알던 것>과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때가 되면 ‘온전하게 되는 길’로 가진다.

13. 하나님은 6000년의 온전한 역사 위에, <마지막 역사>를 두고 섭리해 오셨다.

14. 지금은, 날마다 온전하게 살아라.

15. 지금은, 온전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때가 그러하다.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 함은 <혼인잔치에 원하는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을 갖추지 않았다.’, ‘주를 믿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행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3. 그 누구는 몰라도 <기다린 자>에게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통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4. <기다린 자>에게 오라고 통보를 했으나 안 왔으니, 시대 새로운 역사를 펴면서 주로서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5. <섭리역사>는 ‘신약의 자녀급 혼인잔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신부급 천 년 혼인잔치 역사’다.

6. <신부급 혼인 잔치>에 왔어도 신부의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신부의 예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주를 믿고 따르는 행실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이 시대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

7. 지금, ‘천 년 혼인 잔치’를 하고 있다! 지금, 천 년 역사가 가고 있다! <지금 이 때에 해당되는 강한 정신과 강한 행실>을 하여라. 왜 강도가 약하냐. 정신 차려라.

8. <첫사랑>이 식으니 ‘생각’도 약해지고, ‘행함’도 약해지고, ‘담대함’도 약해졌다.

9. <사랑의 혼인 잔치>다. <사랑으로 휴거>다.

10. <사랑을 시원찮게 하는 자들>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랑의 최고 차원’에 오르지 못하고, ‘삼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11. <신부>가 ‘혼인 잔치의 때’에 정신을 못 차리면, 신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녀권 역사’로 가게 된다.

12. <성령님>은 더 이상 없이 깨끗이 만들었을 때 “신부 같다. 성전 같다.”고 표현하신다. 신부라면, 무엇을 만들더라도 신부 같이 만들어라.

13. <지금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혼인 잔치에 해당되는 일들’이다. 새로운 역사의 말씀을 주어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

고, 하나님 창조목적의 근본을 가르쳐 주어 뜻을 이루게 하고, 지금 이때 해당되는 말씀을 주어 행하게 한다.

14. 하나님은 구상을 주실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으신다. 자신이 <온전한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대답하신다. 온전케 하지 않으면, 대답이 없으시다.

15.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여라. <최고 좋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이다.

16. <민족의 고유 명절>을 보내면서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조상을 생각하니, 바람으로 사역자 삼으셨음을 깨달아라.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쓰고 싶은 대로 ‘매일 단장’이다. ‘가꾸기’다.

2. <신부>는 단장하고 가꾸지 않으면, 신부가 아닌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3. <몸 단장>뿐 아니라 <마음 단장>, <신앙 단장>을 절대 해야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주’께도 실망하지 않는다.

4. <단장>해야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도 받는다.

5.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단장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6. <월명동>도 다시 헐고 쌓을 수가 없다. <단장함>으로 ‘다시 쌓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

7. <단장>과 <가꿈>은 기본의 모양을 더욱 빛나게 해 준다.

8. <희망>이 있어야 가꾸고 싶다.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9. <보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굳이 ‘자기를 가꾸고 단장할 마음’은 없는 것이다.

10. 우리는 <사랑하는 자>도 있고 <존경하는 자>도 있다. 바로 ‘단장한 후에 보여 드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주님’이시다. 고로 ‘가꾸고 단장할 마음’도 있다. 또한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려면, 육도 혼도 영도 거기에 해당되게 가꾸고 단장한다.

11. <자연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자, ‘우리들의 상징적인 몸’이다. 꾸미고 가꾸는 대로 형체가 바뀐다. 어떤 곳은 ‘그때’에 해당되게 만들었지만, 다시 ‘지금’에 해당되게 만들 곳도 너무 많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만들고 꾸미는 것’도 달라진다. <자기 신앙>도 그러하고, <육의 삶>도 그러하다.

12. 가꾸고 만들지 않으면, 잡초 밭 되듯 된다.

13. 가꾸고 만들어야 <희망>과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친다.

14. 안 가꾸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15. 항상 <삼위의 새로운 구상>이다. <제2의 창조>다. <무(無)에서 유(有)>다. <이미 만든 것에다 더하기>다. <더 좋게 만들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더 좋게 해 주기>다. 그리고 <같이 쓰기>다.

16. <간구와 기도>다. <날마다 변화되는 신부의 신앙>이다.

17. <생명 전도, 생명 관리>다.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해야 된다. 전에는 악평했어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니 <미련 없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다.

18. <정신 차리고 매일 성령과 행하기>다. <차원 높이기>다. 20

19. 9. 11. 새벽 성령과 함께 월명동 청기와에서

<2019년 9월 1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혼인 잔치에 오는 것>은 ‘자기의 책임 분담’이고, <왔을 때 잘 대해 주는 것>은 ‘먼저 온 자의 책임’이다.
2. <혼인 잔치>에 왔어도 ‘혼인 잔치의 예의’를 갖추고 행해야 된다.
3. <혼인 잔치>를 했어도 서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4. <혼인 잔치에 오는 목적>은 ‘시대 말씀을 듣고 주를 알고 하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는 것’이다.
5. <혼인 잔치에 와서 예의 없이 행하는 자>는 ‘예복을 갖추지 않아서 쫓겨난 자’와 같다.
6. <옷>은 ‘의의 행실’이다. <행실>대로 ‘육의 옷’도 ‘영의 옷’도입는다.
7. <영이 의의 옷>을 입은 대로,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간다.
8. <두 번째>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니, <첫 번째>에 안 됐어도 믿고 행하여라.
9. <하나님의 천 년 혼인 잔치 역사>에 오도록 ‘전도’하자. ‘시대 말씀’을 전해 주자.
10. 이 시대는 <천 년 혼인 잔치를 할 때>다. ‘말씀과 영의 잔치’이며, 더불어 ‘육의 잔치’다.
11. <시대를 알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12. <하나님의 새 역사>를 잘 맞이하고 <새 시대의 혜택>을 많이 보려거든, ‘시대 말씀’을 듣고 많이 행하여라.
13. <행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14.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해 주시니, 즉시 행하여라.
15. <행하는 자>에게 주가 성령과 같이 행해 주신다.

<2019년 9월 1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요한복음 17장 3~4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이다.
2.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다.’, ‘그가 메시아다.’ 하고 알지 말고, 하나님과 주를 근본적으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무엇을 행하시는지, 메시아는 무엇을 행할 권세가 있는지’ 이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된다.
3.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모르니, <주>가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여도 모르고, 주가 스스로 행하는

줄만 알고 따라오면서 반대하고 호응하지 않는다.

4.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알아야 된다. 이 시대가 종의 시대냐? 아들의 시대냐? <실체 신부 시대>다. 그렇지 않으면 ‘휴거’를 못 이룬다.

5. 신부 시대에 왔어도 <휴거되지 않은 자>는, 신부로서 ‘100% 행하지 않은 자’다. 섭리사에서 일부는 제대로 알고 행하여 휴거 됐어도, 일부는 제대로 몰라서 휴거되지 못했다.

6. 휴거는 때가 됐다고 다 이루는 것이 아니다. <휴거의 때>가 됐어도 메시아를 통해 휴거의 뜻을 배우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7. 세상의 일도 자기가 한 대로만 된다. 자기가 한 것만 되어 있고, 안 한 것은 안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원>도 자기가 ‘행한 대로’만 된다.

8. <휴거>된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장담하지 말아라. 개인을 한 명씩 확인해 보면, ‘휴거된 자’도 있고 ‘휴거 안 된 자’도 있다. 그 정도로 믿어서 휴거 됐겠느냐? 그 정도로 알아서 휴거 됐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9. <휴거된 자>는 왕의 왕비가 된 것과 같아서 그 영이 잘됨과 같이 욕도 많은 ‘축복’을 받고 산다.

10. <휴거 길을 가는 자>는 많아도 실상 ‘휴거된 자’는 많지 않다. 부지런히 <하나님과 메시아>를 ‘이 시대급’으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11. 지금은 <휴거 말씀 시대>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해야 된다.

12. <하나님과 주>를 제대로 모르니 ‘제 갈 길’로 가고, ‘이성으로 타락’하고, 불신자와 어울리며 그 말을 듣고 ‘자기 주관적 생각’을 한다. 그리고 사탄의 밥이 되어 ‘영생 길’을 벗어나고, ‘시대 신부 길’을 벗어나 살면서 교회만 다닌다.

13. <주께 확인 받기 전>에는 ‘휴거됐다. 영생을 얻었다.’ 장담하지 말아라.

14. <주께 확인 받기 전>에는 <일>도 ‘제대로 됐다.’고 장담하지 말아라.

15. <주>를 알라고 ‘수천 번의 표적’을 보여 줘어도 자기 책임을 못하고 첫사랑을 잃고서 ‘정말 주가 맞나?’ 하며 주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기도 하고, 더러는 사망길로 가 버린다. 기저귀 찬 어린 자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도 모르고, 주도 제대로 모르고 살고 있다.

16. <주를 자기 주관대로 판단하는 자>는 결국 ‘사망길의 운명’으로 기울어진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황금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17. <말씀>을 전해도 주와 같이, <기도>를 해도 주와 같이, <어떤 생각>을 해도 주와 같이, <운동>을 해도 주와 같이, <조경>을 해도 주와 같이, <인테리어>를 해도 주와 같이, <구상>을 해도 주와 같이 해라. 주와 같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실천해야 최고가 된다.

18.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던 길>을 버리고 주를 따르며, <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겠다고 고백해라.

19. <하나님과 주>에 대해 알아야 ‘그가 행하는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 처음에 알다가도 시험에 들면 헛갈리고, 섭리사를 나간 자의 말을 들으면 헛갈린다. <주의 말>을 듣고 100% 믿고 따라라.

20. <창조 목적을 제대로 알고 행하지 않은 자>는 ‘완전한 신부가 됐다. 완전한 휴거를 이뤘다.’ 믿을 수 없다.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나쁜 것>이라도 한 가지를 택하면, <좋은 것>이라도 한 가지는 포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길>을 가다가도 <세상>을 택하게 되니, <주>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버리게 된다.
2. <좋은 것>을 택했어도 '정신과 생각의 수준'이 낮으면, 그 생각에 따라서 <나쁜 것>을 택하고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 그러다가 행한 대로 얻고 받고, 그 길로 가게 된다.
3. <좋은 것>을 택하고 매일 좋아하며 갈 때,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와 함께하시며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4. <나쁜 것>도 자신이 좋아하면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나쁜 것>이니, 자기가 택한 쪽으로 기울어져 나쁘게 되고 만다.
5. <지능>이 낮고 <생각>이 낮으면 '나쁜 것'도 좋게 보고 택한다. 결국은 '나쁜 세계, 나쁜 쪽'에 속해 산다.
6. <나쁜 쪽>에 속해 살면서 좋아하는 자는, 그것이 '나쁜 쪽'인지 모른다. 그러다 <좋은 쪽의 것>을 보면, 비교하니 알게 된다.
7.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택한 자>는 영원히 봐도 '좋은 쪽을 택한 자'다. <자기 생각의 수준대로 나쁜 쪽을 택한 자>는 영원토록 '나쁜 쪽'으로 간다. 결국은 '사망의 세계'다.
8. <나쁜 쪽>도 처음에는 나쁜 것인지 모른다. 그러다 결국에는 '그 열매'로 알게 되니 그제야 깨닫지만, 그때는 '그에 해당되는 고통'을 받게 된다.
9.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가인 족속>도 도와주신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는 '삶'도 다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대함'도 다르다. 그곳은 <주가 없는 세계>이니, 육신이 살아 있을 때도 '삶의 구원'을 받지 못하여 갇은 고통을 받으면서, 가인들끼리 뭉쳐서 '선의 세계, 좋은 쪽'에 불만을 품고 악평하며 살아간다.
10. <애초에 나쁜 쪽을 택한 자>는 나중에라도 '좋은 쪽'을 보고 찾아오지만, <좋은 쪽을 택해서 살다가 유혹을 받고 나쁜 쪽으로 간 자>는 후회하면서도 못 돌아온다. 형벌 기간이 있기 때문이고, 주를 배신하고 불신한 연고다.
11. <전능자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 주가 싫어하여 버린 바가 된다. 고로 쫓겨남을 받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12. <나쁜 것 택하고 그쪽 편을 드는 자>는 '사탄의 주관권에 속한 자'다.
13. 누구든지 <악한 편>을 들면 '악한 자'다.
14. 누구든지 <선한 편>을 들면 '선한 자'가 된다.
15. <선한 편>을 두둔했느냐, <악한 편>을 두둔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
16. <선택>을 잘해라. <자기 마음과 생각>이 속한 대로 주장하게 된다.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첫 번째는 <시대 말씀>을 배우고 <주>를 알기다. 두 번째는 <주의 마음과 심정>이 어떠한지 알고 대하기다.

2. <주의 마음과 생각과 심정을 모르고 대하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복’도 받지 못하고, ‘주가 원하는 축복’도 받지 못한다.
3. <하나님>은 ‘보낸 구원자’를 통해 행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
4. 주는 심령골수를 꿰뚫어 본다. ‘양심’을 보고 ‘그 심정’을 본다.
5. <주의 생각>을 받아 ‘그 높은 차원’대로 행하여라.
6.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배우면서’ 알고, ‘겸으면서’ 알아야 매일 더 알게 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아는 만큼 축복이다.
8. <아는 것>이 ‘힘’이다. ‘능력’이다.
9. <아는 자>가 ‘신’이 된다.
10.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
11. <하나님과 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성령을 아는 것>이 ‘육과 영의 세계의 지식의 근본’이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을 알아라. 아는 만큼 받게 된다.
13. 세상은 알지도 못하면서, 제 좋아하는 대로 인생들을 살아간다.
14. <하나님과 주>에 대해 알지 못하면, 사탄이 ‘그 생각과 주관’으로 끌고 간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아는 것>이 ‘희망과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 말씀과 뜻대로 행하는 자>는 ‘사망’을 벗어나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지 않음으로 자유롭게 되고, 육도 영도 ‘영원한 황금성 천국 주관권 안’에서 살게 된다.
16.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된 삶’을 살아라.
17. <교회>에서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라.
18. <때>를 따라 행할 줄 알아야, 잘되고 형통한다.
19. 현재는 잘 모르나, 가다 보면 잘 알게 된다. 끝까지 믿고 행하여라.
20.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벗어나서 사는 자들>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나, 결국 끝에 가서는 후회하고 그제야 깨닫고 안다. 하지만 돌아서서 다시 ‘생명길’로 가기에는 시간이 없다. 고로 돌아서 온다 해도 너무 멀어서, 오다가 만다.
21. 어떤 이유로든지 한번 ‘하나님 섭리역사의 길’을 벗어나면, 자기 인생길을 가게 된다. 다시 돌아온다 해도 ‘자기 인생의 때’를 놓쳐서, 인생의 해가 서산에 서성대다가 그대로 끝나게 된다.
22. 인생 일찍부터 뛰어라. <과거부터 섭리역사를 뒀던 자들>에게 ‘지금’이 최고로 좋은 때’다. <주>도 ‘과거’ 40년 동안

그렇게 뛰고도, ‘지금’ 또 뛰고 달린다. <예전에 뛰었던 터전 위>에서 뛰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 이상적으로 주시고, 더욱 함께 뛰어 주신다.

23. <운동>도 할수록 더 잘되고 잘하게 되듯이, <섭리역사>도 그러하다.

24. <자기>만 뛰지 말고, <힘든 자>도 관리하고 <새로운 생명들>도 이끌면서 뛰어라.

25. 지금은 <계절>로 봐도 ‘제일 좋은 때’가 왔다. <때>를 알고 ‘이때’ 뛰자! 겨울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잘 안 온다.

26. <잘될 때 양보하지 말고 자기가 부지런히 뛰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27. 교역자들에게 :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깨닫고 심정 깊이 전해 줘야, <듣는 자>도 깊이 듣고 깨닫는다. 말씀을 읽어 주지만 하면, 심부름꾼 목회자다. 듣는 자들이 깨닫도록 전해 주어야. 자기가 겪은 것도 전해 주어야. 음식을 요리하듯 전해 주어야. 2019. 9. 18 새벽 청기와에서, 선생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은 <모르던 것을 알 때>와, <잘못 알았던 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충격을 받는다.

2. <기다리며 준비할 때>는 산같이 해 놓고, <실제 그 날이 왔을 때>는 별로 안 한다. 이것이 ‘폐단’이다.

3. <기다릴 때>는 미쳐서 마음 들떠 기다려 놓고서는 <실제 그 날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잠깐 미쳐 행하더니, 현실이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모자라게 시원찮게 행한다.

4. <성령님>은 ‘실체, 곧 본체’로 존재하며 행하신다.

5. <성령>을 ‘육신체’로 보려면, ‘성령이 쓰고 행하시는 육신’을 보면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시대에 보낸 사랑의 대상, 그리스도’를 쓰고 행하신다.

6. <성령>께서 ‘메시아의 육’을 쓰고 행하시니 <메시아의 속>은 ‘성령’이다. 고로 <메시아의 육신>은 ‘성령을 나타내는 실존체’다. <그 육신>을 통해 ‘성령님’을 보는 것이다.

7.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

8. <성령님>은 그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풍기는 이미지와 느낌’이 어마어마하시다. 아름다움과 권능과 권세를 다 나타내신다.

9. 영의 세계에서는 <아름다움>이 곧 ‘권세’이며 ‘능력’이다. 고로 <영체>를 보면 ‘그 권세와 능력’을 알 수 있다.

10. <성령님>도 아름다운 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아름다운 만큼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신다.

11. 선생은 <극>에서 <다른 극>이 됐다. (설명 : 처음에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안 쳐다보면 부끄럽다. 그래서 이제는 청중이 많을수록 더 잘한다.)

12. <성령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본인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하게 하신다. 그 터전 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13. 본인이 좋아하면, 혼자라도 기뻐서 자꾸 행한다.

14. 신앙도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된다.

15. <구원자>가 ‘실체’로 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실체’로 와 계신다.

16. <성령>과 같이 행하지 않으면, ‘육에 속한 자’가 된다.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자기가 좋아서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뜻이 아닌 것을 좋아서 행하려 할 때는, 틀어서 행하지 못하게 하신다.

2.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뜻 있는 쪽>을 원하고 좋아하여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3. <성령님>은 ‘내적 신’이다. 비유컨대, 건축할 때도 ‘외부 공사’가 있고 ‘내부 공사’가 있다. <외적 공사>는 ‘건물을 짓는 것’이라면, <내부 공사>는 ‘인테리어’다. <성령님>은 ‘내부 공사 인테리어 쪽’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외적인 부분’보다 ‘내면적인 부분’으로 역사하여 행하게 하신다.

4. 성령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도록 도우며 역사하신다.

5. 성령님은 자상하시고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신앙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고 단장시켜 주신다.

6. 성령님은 ‘미의 여신’이다. 그래서 신앙도 미적으로 더욱 다듬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7. 지금은 <성령시대, 신부시대>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신부들을 더욱 단장시키고 만들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시고, 구원자를 지키고 증거하고, 구원자를 통해 말씀을 주어 지켜 행하게 하시고, 행할 일을 깨닫게 해 주신다.

8.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감동되면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9. 성령님은 <각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며, ‘자신이 좋아서 행하도록’ 역사하신다.

10. 성령님은 <마음의 운전대>를 틀어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행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다. 그러나 <되어진 결과>를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1. 그냥 보면 <성령의 계시>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른다.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성령과 교통’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심’을 잘 알게 된다.

12. 성령의 역사에만 그치지 말고, 성령을 모시고 사랑하며 성령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13.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성령님과 잘 통하니, 성령께서 때마다 성령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 (설교자는 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어라.)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전문가>가 해야 제대로 한다.

2. <사명자>가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도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신다.

3. <사명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맡기신다.

4. <말은 자>는 책임을 지고 행한다. 그러기에 <말은 자>가 하게 된다.
5. <사명자>는 사명에 불타서 해야 한다.
6. <사명자>는 그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다.
7. <사명자>는 더 잘하도록 배워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8. <사명자>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도록 기도하여 그 생각에 맞춰야 된다.
9. <사명자>가 하더라도 ‘최고의 방법’으로 하느냐, ‘보통 수준’으로 하느냐가 문제다.
10. 제대로 못 해 놓으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11. <큰 사명자>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배경과 환경에 처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성장한다.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겪게 하여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신다. 고로 <안 해야 할 것>은 절실하게 겪었으니 스스로 안 한다.
2. <사명자>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술과 능력’도 다르다.
3. <사명자>는 기어이 한다.
4. <사명자>는 자기 일같이 한다.
5. <사명자>는 뭘 주나, 안 주나 좋아서 행한다.
6. <사명자>는 즐기면서 한다.
7. <사명자>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녕코 한다.
8. <사명자>는 ‘전문자’다.
9. <사명자>가 한다. 다른 자는 생각도 못 한다.
10. <사명자>는 어디 가도 표가 난다.
11. <사명자>는 누가 미쳤다고 해도, 의식하지 않고 좋아서 한다.
12. <사명자>는 정말 빨리한다. 순간 해 버린다.
13. <사명자>가 하면 속 시원하게 한다. 고로 보고 듣는 사람마다 만족해하고 속 시원해한다.

<2019년 10월 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명을 받지 않고도 행한 것>이 어느 때는 하나님과 성령님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사명을 받고 연구하여 유능하게 행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 그래야 <일을 맡긴 자>도 마음에 들어 좋아하고 협조하게 된다.
2. <사명자>가 행해야 맘이 놓인다. 질서가 있다. <다른 자>가 하면 몰라서 잘 못 한다.
3. <주>는 성령과 함께 나무를 심고 돌을 쌓는데, <사명을 받지 않은 자>는 놀러 가거나 정반대의 일을 한다.
4. <사명 받은 자>는 '주인에게 건물 설계 도면을 받은 자'와 같아서 거기에 맞게 건물을 잘 짓는다. 그래도 다 한 후에, 제대로 했는지 주인에게 검토 받는다.
5. <사명자>에게는 주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해 준다. 고로 절대 '사명자'가 해야 된다.
6. <이 시대 구원역사, 1000년사 혼인 잔치>도 '신랑 되는 시대 주'가 해야 된다. <주인 되신 하나님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해서 같이 하신다.
7. <사명자>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평소에 하던 대로 잘한다.
8. 축구에서도 <골인의 사명자>는 '스트라이커(striker)'다. 그를 통해 골을 가장 많이 넣게 된다. 고로 그에게 볼을 잘 패스해 준다.
9. <주 증거의 사명자>도 그러하다. 그 사람이 증거할 때, 감동이 되고 믿어진다.
10. <사명자>가 말을 안 들으면, 실패로 끝나게 된다.
11. <사명자>가 해라. 그러나 사명자 혼자서 힘들면 같이 데리고 하되, 가르쳐서 하게 해라.
12. <그 일의 사명자>는 '말'도 잘하고 '실천'도 잘한다.
13. <사명자>는 순간 '치타'같이, '독수리'같이 속 시원하게 한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상세계>는 개인적으로도 이루지만, '시대 뜻을 좇는 자들'과 함께 각종으로 이루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이상적이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3. <이상세계>는 하나님이 키우고 만들어서 행하신다.
4.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키우고 가르치고 만들어야 '이상세계'를 이룬다.
5. <이상세계>는 '바라던 희망의 새 역사'를 말한다.
6. <이상세계>는 '그 세계에 오는 자들'만 함께 이룬다.
7. <이상세계>는 항상 '하나님이 보낸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그 주관권'으로 와서 참여해야,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쓰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대로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8. <주가 가는 곳>에서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상세계를 이룬다.

9. <성약역사 이상세계>는 ‘성약역사에 오는 자’만 이룬다.

10. <성약 주관권 세계>에서도 ‘그날그날 이루는 이상세계’가 있다. 그날그날 주와 같이 행하며 그 주관권 안에서 이룬다.

11. 하나님과 성령께서 ‘보낸 자의 육신’ 쓰고 행하시며 <이상세계>를 이루신다.

12. 육도 마음도 혼도 영도 ‘주와 일체 된 자들’이 <이상세계>를 이루며 산다.

13. <자연성전>은 ‘이 시대 성약역사, 하나님의 에덴동산’이다.

14.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을 중심해서 행하시며 ‘이상세계’를 이루신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상세계>를 ‘자기’를 중심해서 이루려하니,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

2.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를 중심해야 ‘차원 높은 이상세계’가 된다.

3. 사람들은 <이상세계>를 원하는데, ‘그저 잘 먹고 좋은 집과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이상세계라고 본다. 그것도 맞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육도 잘되고 영도 잘되는 세계’라고 말씀하셨다.

4. 땅에서 <육신>도 이상의 세계를 이루고, 그 <영혼>도 천국에 가서 황금성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이상세계’다.

5. <이 세상의 이상세계>는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사다 놓고 보고 누리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의 대상과 같이 살기’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짧은 일순간의 이상세계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차지하여 사랑의 대상으로 모시고 주와 같이 사는 삶>이 ‘최고의 이상세계’다.

6. <6000년 구원역사 가운데 최고의 이상세계>는 ‘육도 영도 휴거되는 삶’이다.

7. <이 세상의 이상세계>는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끝난다. <하나님의 이상세계>는 ‘육신’이 생을 다하여 끝까지 가고도 ‘영’이 영원한 황금성 천국의 삶을 산다.

8. 지금! 하나님은 메시아를 중심하여 ‘하나님의 새 일, 성약역사 이상세계의 일’을 하고 계신다.

9. <이상세계>는 매일 진행된다. 밤낮으로 진행된다.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펴는 것>이 ‘이상세계’다.

11. <구약의 이상세계>는 ‘종급 이상세계’이고, <신약의 이상세계>는 ‘자녀급 이상세계’다. <성약의 이상세계>는 ‘삼위의 사랑하는 애인이 되고 신부가 되어 사는 삶’이다.

12. <이상세계>를 잘못 이루고 살면 ‘이상한 삶’이 되고, 인간의 정신도 ‘이상한 세계’로 가서 허무하게 끝난다.

13. <주를 중심>하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자기 위치에서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아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오늘 일>을 빨리해야 <내일 일>을 빨리한다.
2. <할 일>을 빨리해야 <다음 일>을 빨리한다.
3. <앞의 일>을 빨리해야 <뒤의 일>을 판단하고 빨리하게 된다.
4. 빨리하지 않으면, <만사>가 느려진다.
5. 일은 빠리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만,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알 수 있다.
6. 열 일 제치고 가서 <할 일>을 빨리해 버리니, ‘할 일’인지 ‘안 할 일’인지 빨리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니 <다음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현장에 가서 뭘 것은 직접 뛰어 봐야 알게 된다.
7. 빨리해야 빨리해진다.
8. <지도자>가 빨리 안 하면, <따르는 자들>도 빨리 안 한다. 고로 손해가 많다. 지도자는 빨리하기 위해 파악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9. 이제는 계절적으로 때가 추워진다. 섭리사 전체가 배로 빨리해야 된다. 그래야 겨울 전에 할 수 있다. 서둘러라. 급하다.
10. 빨리 안 하면, 하나님도 주도 심정 타신다. 주의 심정과 마음이 되어서 행하여라.
11. 빨리 안 하면, 하나님도 주도 심정 타서 ‘다른 사람’ 쓰고 행해 버리신다.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빨리해야 ‘때’를 놓치지 않는다.
2. 빨리하는 자만 ‘성공’한다.
3. 빨리해야 성령님도 주님도 돕고 같이 행하시니,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다.
4. 빨리 안 하면 ‘희망의 꿈’을 이룰 수 없다.
5. 빨리해야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목적’을 이룬다.
6. 빨리해야 ‘시대’를 쫓아간다.
7. 느리면, 해도 소용없다.
8. <주>를 빨리 믿고 따라야 늦지 않고 ‘구원과 휴거’를 이룬다.
9. 빨리하지 않는 자는 늙어서 고생한다.
10. <빨리>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라. 그래야 빨리하게 된다.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배의 근본’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주일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으니, 잊지 말고 행하자.)
2. 새롭게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행실>을 하여 ‘변화’를 받게 된다.
3. 새롭게 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따라야 된다.
4. <새로운 예배,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보내신 주와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다.
5. 지금은 ‘새 시대’다. 그러므로 <새 시대 예배>를 드려야 ‘새 시대’를 좇아 ‘주’와 함께 예배드린다.
6. <새 시대>는 맞았지만 <새 시대의 주인인 주>를 못 만났으니, ‘신령한 자’도 못 되고 ‘진정한 자’도 못 된다.
7.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에는 ‘하나님이 보낸 자’가 나타나서 ‘시대’를 새롭게 이끌고 나간다.
8.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의 날, 성령님의 날, 주의 날’이다.
9. <안식일>은 ‘주와 일체되는 날’이다.
10. <주와 같이 예배드리는 자>만이 ‘신령한 자’이며 ‘진정한 자’다.
11. <안식일>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12. <환난 날에도 주일을 꼭 지켜 행하는 자>는 결국 ‘주의 축복’을 받고 산다.
13. <주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도 축복해 주지 않으시고, 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
14. <안식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보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 하는 일을 틀어 버리신다.
15.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축복’을 못 받으면,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
16. 집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하나님도 ‘축복’을 안 해 주신다. 봐라. 그 하는 일이 안 되고, 슬피 울며 후회한다.
17. 주와 같이 안식일을 지켜라. <집에서 말씀만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신부’가 되지 못한다.
18. <안식일에 자기중심, 안일주의로 행하는 자>는 결국 편히 쉬지 못한다.
19.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제대로 ‘하늘 신부’가 되어 ‘안식일을 확대한 천 년 왕국 혼인 잔치 안식’에 들어간다.
20. 말씀을 선포했으니, 행해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도 ‘축복’도 안 해 주신다.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매일 해야 ‘변화’되고 ‘불가능의 고개’를 넘어간다.

2. <매일 하는 것>이 ‘표적’이다.
3.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일어난다.
4. 시대적으로 변화되려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내신 자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해라.
5. 때에 따라 하나님과 주의 뜻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음 코스’로 못 간다. 변화돼야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뛰고, ‘신부로서 얻을 것’을 얻으며 써먹고, ‘지상 황금 천국, 천상 황금 천국 역사’를 이루고 산다.
6. 너도나도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육도 혼도 영도 변화되기도.
7.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변화돼야, ‘다음 것’을 얻는다.
8. <오직 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다.
9. <때>가 있다. ‘그때 만들면서 변화’다.
10. <변화될 기회>가 왔다. ‘이때’다!
11. <깨달은 자>는 속히 행하여라!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줄 것>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
2. <예정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은 모두 구해야 주신다.
3. <예정된 것>이란 ‘메시아를 땅에 보내는 것’이다. 이는 예정되어 있어서,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보내 주신다.
4. <하나님의 절대 책임인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신다. 그러나 역시 ‘구해야’ 주신다.
5. <구해도 얻지 못함>은 한계를 넘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6. <아픈 것>이나 <걱정·근심·염려>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과 성령께서 주와 함께 해결해 주신다.
7. <주께 구할 것>은 직접 구해라. 그러면 <주>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일’이니 자기 일같이 들어 주시고, ‘주가 가진 능력’으로 행해 주신다. 또한 하나님도 성령과 함께 ‘그 육신’을 통해 행하신다.
8. <하늘 신부들>이 구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주께 속해 있으니 그 간구를 듣고 행하신다. <하늘 신부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주 안’에 속해서 ‘한 뜻, 한 몸’되어 살기 때문이다.
9. 구하여 얻고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남겨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 있고 ‘해결해 주신 보람’이 있다.
10. <새 시대>가 왔으니, ‘새 시대에 쓸 것’을 구하여라.
11. <자기>를 위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구하여라.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것>도 구하여 얻게 해 주어야 한다.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가치>를 모르면, 찾아도 못 찾는다.
2. 누구를 위해서 찾느냐. <주>를 위해서 찾으니, 더 잘 찾는다.
3. 사람들은 없다고 했는데, <찾으려고 결심하고 간 사람>은 찾아왔다.
4. <부지런한 자>가 많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많이 받는다.
5.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차원 높여 '좋은 방법'을 찾아라.
6. <좋은 생명을 찾아야 할 때>다. 눈보라가 치기 전에 찾아라. 때가 있다.
7.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
8. 남이 찾았다고 없다 하지 말고 또 찾으러 가 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없이 주신다.
9. 구하고 또 구해라. 찾고 또 찾아라. 주인이 잠들면 문을 두드려도 모르니,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려라.
10. 한 번 찾으면, 평생 쓴다. 그러니 힘들지만 찾아라. 주와 같이 찾으면 찾아진다.
11. 금주뿐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일'은 매일 해야 된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주께 맡긴 자들>은 주께 받고, 염려를 해결하고 살았다.
2. <주께 맡긴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욕도 영도 성공했다.
3. 주는 영이시니, <주께 맡긴 자>는 '영적인 자, 아는 자'가 되었다.
4. <주께 맡기라는 이유>는 주 안에서 모든 염려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5. 주는 머리시므로 그가 알고 행하신다.
6. 주는 구원자시니, 맡기면 어떤 면이든지 구원을 시키신다.
7. <주께 맡긴 자>는 '주의 욕'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
8.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니, 스스로 염려와 고통을 못 벗어난다.
9. 주는 자유 된 몸이다. 사망을 이긴 자다. 고로 이긴다.
10. <주께 맡긴 자>는 사랑도 승리하여 휴거됐다.
11. <주께 맡기지 않은 자>는 사탄이 사랑을 취하고 사망으로 끌려간다.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주께 맡기고 살면, 부담이 없어서 잘 된다.
2. <주께 맡길 것>만 맡기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된다.
3. 주께 맡겨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책임지고 해 주신다.
4.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기지 않은 자들 중>에 '승리한 자'가 없고, '잘 된 자'가 없다.
5. 인생의 해 그늘에 가서 힘들다고 하며, 그제야 맡기지 말아라.
6.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일의 운명이 좌우된다. 때가 지난 다음에 맡기면, 맡기나 마나다.
7. <아예 맡겨 버리고 사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
8. <주께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은 문제에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기어가며 살다가 끝난다.
9.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이다.
10. <주께 맡긴 자>만 매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 잔치하고 산다.
11. 주께 맡기지 않았을 때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한숨을 쉬더니만, 맡긴 다음부터는 희망에 차 즐거워했다. 결국 잘 되니, 너무 좋아 기뻐하고 흥분되어 하늘 앞에, 주 앞에 감사감격 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랑>은 '사랑하는 자에게 다 고하는 것'이다.
2.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3. <사랑>은 '항상 주와 의논하고, 주께 보고하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4. <사랑>은 '주를 믿어 주고 주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5. 사랑하면, 자기 소원을 고한다.
6.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다.
7. 사랑은 공의롭다.
8. 사랑은 위대하다.
9. <육도 영도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이다.
10. <사랑>은 '만물 사랑, 자기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 사랑'이다.
11.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12. <하나님과 주를 떠난 세상 육적 사랑>은 '시한부 사랑'이다.

13.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14. <참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모든 만물을 쓰는 자와 보는 자>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알도록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2.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말하지 않고서는 그를 알기 어렵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자신을 알게 하고, ‘그를 보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 깨닫게 한다.

3.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를 알고 ‘깨닫게 해’ 주신다. 왜?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서 ‘그의 행함’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알게 해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메시아의 말씀’이다. 둘째는 ‘메시아로 인해 일어나는 표적들’이다. 셋째는 ‘성경에 예언한 때’를 깨닫게 하시며 ‘시대’를 정확히 알게 해 주시는 것이다.

4.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와 같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도와주시며 메시아를 알게 해 주신다. 또 그가 <새로운 역사>를 펴고 행하게 하시며 알게 해 주신다.

5. 하나님은 사람들이 <각종으로 시달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메시아를 깨닫게 해 주신다. 메시아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을 벗어나게 해 주시고, 사탄들을 쫓아 없애버리신다.

6. 하나님은 메시아가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앞날을 두고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스스로 깨닫고 따르게도 하신다.

7. 하나님은 메시아와 함께하심으로 ‘많은 생명들’이 그를 따라오게 하신다.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게 해 주신다.

8. 메시아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철저히 ‘이루어’ 드린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믿게 해 준다.

9. 메시아는 <성경의 많은 비밀의 말씀, 은밀한 말씀들>을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풀어 스스로 깨닫고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임을 더욱 알게 해 준다.

10.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꿈>이나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깨우쳐 주심으로 알게도 해 주신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문제>는 늘 닥친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문제에 속한 것들을 행할 때 나온다. 어떤 문제는 안개를 헤치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안개가 사라지듯이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그 주관권을 벗어나야 해결된다.

2. 시대마다 <주관권을 벗어나야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는 ‘구약 주관권’을 벗어나야 해결되고, 어떤 문제는 ‘신약 주관권’을 벗어나야 해결된다. 벗어나기 전에는 노력해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된다.

3. <하나님의 때, 시대의 때>는 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고로 ‘시대를 잘 타고나는 것’이 복이다. 시대를 잘못 타고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인생의 해가 진다.

4. <종교 세계에서 가장 기다리는 자>는 ‘메시아’다. <메시아를 맞는 것>이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최고 희망을 이루는 축복’이다.

5. 섭리사 사람들은 <종교 역사 6000년 동안 기다렸던 최고 역사의 때>에 태어나서 주를 만나고, 믿고 따르며 기쁨으로 살고 있다. 지금 이때 ‘월명동’을 천지 창조 이후 최고로 만들어 놓고 즐기고 기뻐하며 살듯이, 종교 역사 이후 ‘최고의 이상세계’에서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다.

6. 섭리사 사람들은 육도 영도 각자의 행위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로 인해 ‘육의 문제’도 해결되고, 영원한 ‘영의 문제’도 해결됐다. 이제는 큰 문제가 해결된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현실에 닥치는 ‘작은 문제들’이 있을 뿐이다. 가다 보면 해결되고, 노력하면 해결되고, 행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7.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주를 맞는 것>이다. 이는 주를 기다리는 시대에만 해당되는 문제다. 섭리사는 ‘주를 맞는 최고의 문제’는 해결했으니, 이제 그 안에서 ‘더 이상적으로 살아가는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8. 결혼할 자가 ‘기다리던 짝’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큰일은 해결한 것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의논하고 살다 보면 풀린다.

9. 주가 왔으니, ‘주와 성령과 의논하면’ 문제가 풀린다.

10. 큰 문제는 해결됐다. ‘현실에 닥치는 작은 문제들’은 저마다 행하면 풀리고, 가다 보면 해결된다.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담대해야 행해진다.

2. <목적>이 분명하고 희망적이어야 행해진다.

3. 부지런해야 행해진다.

4. <마음과 생각>이 강해야 행해진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해야 ‘큰일’도 행해진다.

6. <미래>를 생각해야 <현재>에 힘들어도 행하게 된다.

7. <실천의 습관이 밴 자>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막론하고 잘 실천한다.

8. <경험이 많은 자>는 누가 코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능력을 믿고 잘 행한다.

9. <행한 자>는 유익을 얻고, 복을 받으니, 자꾸 행하게 된다.

10. <행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다. 기능을 못 하니,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11.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실천자>에게 ‘자신의 뜻과 목적’을 주어 행하게 하시고, 그와 같이 기뻐 사랑하며 혼인 잔치 하신다.

12. <실천자>가 ‘신’이 되고, ‘주인’이 된다.

13. <실천자>만이 다스린다.

14. <실천자>는 사탄을 멸하고, 악인들을 이기고, 이상세계를 이룬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과 같이 삼위를 모시고 사랑하며 창조목적을 이루고, 매일 혼인 잔치 하며 살아간다.

15. <이긴 자>와 같이 가야 이기고, <승리자>와 같이 살아야 승리한다.

16. 주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담대하게 행하면 '매일 승리의 삶'이다.

17. 지난날 얼마나 중한 일을 했는지 깨닫고, 현실에 흔들림 없이 행해야 된다.

18. 하나님의 역사는 매일 쉬지 않고 가고 있다. 고로 <매일 행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의 역사'에 들어가 살게 된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문제>가 있으면, 주께 고하여라.
3. <간절한 기도>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 된다.
4. 자기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5. <문제>가 쌓이지 않도록 그날그날 처리하여라.
6. <문제>도 '때'가 되어야 풀린다.
7. 부딪혀 봐야 '문제의 답'을 얻는다.
8.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9. 나도 너도 문제들이다. 서로 대화해야 풀린다.
10. <문제>를 해결하면, '거기에 따르는 축복'을 받는다.

<2019년 11월 30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더 잘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긴다.
2. <하나님의 뜻>을 더 수고하며 더 이상적으로 행하는 만큼 더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행하면 된다.
3. <하나님의 궁, 월명동 자연성전>도 더 잘하려고 할 때마다 더 문제가 생겼다. 실천하니, 문제도 해결되고 더 아름답게 되었다.
4. 실천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이상세계다.
5.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신비하게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6. 저마다 세상이나 섭리사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과 주와 함께 담대히 행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좌우

된다.

7. <자기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착 붙어서 행하기’다.

8. <문제>는 항상 ‘자기’로 인해 온다. 자기가 잘못함으로도 오고, 뜻이 있어서도 온다. <답>도 ‘자기가 잘하기’에 따라서 해결된다.

9. <문제>를 ‘제때 행하기’다.

10. 실천하여 문제가 해결되니, 보람이다.

11. 인생 문제를 괴롭게 생각 말아라. 노여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문제’도 있다.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모르나, 후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게 된다. 베드로도 그러했다.

2. 하나님이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실 때, 그때가 기회다. 벗어나지 말고 순리로 감사하면서 행하여라.

3.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길>로 인도하실 때, 먼저 ‘자기 생각대로 가던 길’을 트신다. 후에는 생명길로 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자기가 자진해서 가든지, 타인의 손에 떠 밀려서 가게 하신다. 가다 보면, 역시 ‘자기가 가야 될 운명의 길’임을 깨닫게 된다.

4. 그 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소나. 깨닫고 스스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빨리 이루고 영광의 자리로 가게 된다.

5. 만일 베드로가 밤을 새우지 않았다면, 아침 일찍 주를 못 만났을 것이다. 또 많은 고기를 잡았다면, 잡은 고기를 팔러 가느라 주를 못 만났을 것이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의 말씀>을 듣게 됐고, ‘자기 길’로 가서 행하지 않았다.

6. 인간이 몰라도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니, 결국 인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되어 귀하고 신기한 것들을 표적으로 깨닫게 된다. 베드로 역시 그러했다.

7.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자기 길>로 가라고 표적을 행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를 따라 <생명길>로 가자고 표적을 행해 주신 것이다. 주의 길은 ‘영원한 길’이기 때문이다.

8. <영원한 삶>만큼 ‘인간으로서 최고 영광의 삶’은 없다. 아무 시대나 땅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교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구가 생기고 세 번의 새로운 역사를 천법으로 정하셨나니,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성약 한 번이다.

9.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행한 하나님의 섭리역사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들’이니, 시대는 달라도 어느 시대든지 듣고 행해야 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된다.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특별히 ‘그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

2. <하나님의 뜻>을 메시아를 통해 행하시면, ‘본인’도 그제야 알게 된다.
3.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다.
4.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야만 무한히 ‘보람 있는 일’을 하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사랑의 영의 삶’까지 살 수가 있다.
5. 사람이 제 아무리 <육에 속한 좋은 삶>을 산다고 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결국 ‘허무한 삶’으로 끝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를 사랑하면서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삶>은 그 자체가 ‘기쁨과 희망을 이루는 삶’이며, ‘영원토록 가는 삶’이다.
7. 하루를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와 뜻을 같이 하며 성령님의 사랑으로 인도되어 사는 삶>이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찾는 만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잘 된다.
9.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를 등지고 모르고 살아봤자 결국은 ‘초라한 삶’으로 끝나게 되고, ‘영원한 고통과 형벌의 삶’만 자기를 기다린다.
10. 늘 이 시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표적의 삶’이다.
11.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실체의 삶’을 살아라.
12. 매일 행할 일을 새롭게 생각하며 ‘더 이상적인 것’을 찾으며 살아라.
13. <사람>은 ‘생각 따라’ 살아간다. ‘생각’이 잘못되어 살면, 손해다. 현재와 미래까지 생각하고 살아라.
14.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해서 그로 인해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기면, 아예 안 한 것만 못 하고 자기로 인해 뼈를 깎는 고통을 받게 된다.
15. 매일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
16. <현재의 삶>은 ‘지난날의 대가의 삶’이다. 그러니 이를 알고, 더 잘하며 살아라.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베드로>는 ‘주’를 알고부터 거침없이 증거도 하고, 말씀도 전했다.
2. 누구든지 <주>를 제대로 알아야, 담대히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다.
3. <베드로>는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멋지게 주를 좇으며 역사를 폈다.
4. 이 시대에도 <주를 알고 깨달은 자들>은 베드로처럼 행해야 된다.
5. <베드로>는 누가 말해서 안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주를 안 자였다. 그러므로 더 확신을 가지고 시인하며 주를 따르는 신앙을 했다. <이 시대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러해야 된다.

6.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가 이미 지났다고 생각하고, 기성인들도 실상은 메시아를 찾고 다닌다. 그러니, 모두에게 <시대의 복음>을 확실히 전해 주자.

7.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사람들이 시대를 좇도록 가동시켜 섭리역사에 오게 하시니, 모두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주어라.

8. 너도 나도 때 놓치고 다음 때에 행하려면 너무 늦다. 그러니, 그때 그 순간 적적 행하여라.

9.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시니, 이를 믿고 성령과 같이 강하게 담대하게 행하여라.

<2019년 12월 8일 주일 잠언>

1.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세계보다 더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며, 답을 찾고, 행한다. 특히 종교세계에서는 <문제 풀기>, <답 찾기>, <행하기>다.

2. 과거 역사를 봤을 때, 인간 스스로는 항상 ‘근본적인 답’을 못 찾고, ‘근본적인 의문’을 풀지 못했다. 오직 <메시아>가 왔을 때 ‘근본적인 답’을 찾고, ‘의문 전체’가 풀렸다.

3. 신약시대를 보면, <예수님>은 그냥 ‘답’을 주시지 않고, 몸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답’을 보여 주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4. <메시아>는 이론적으로 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의문들을 풀어 주는 역사’를 편다.

5. 사람들은 나름대로 <답>을 찾고 다니지만,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 <의문>에 갇혀 있다.

6. <하나님의 인봉>은 아무도 풀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가르친 보낸 자’만 풀 수 있다.

7. <하나님께 배운 메시아>는 ‘말’만 배우지 않고, ‘행함’을 함께 배운다.

8. 신약 때 <예수님>이 ‘답’을 주며 직접 행해 주시사 ‘구약 전체의 역사’가 풀렸던 것처럼, <이 시대 주>도 ‘모든 시대의 답’을 이론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면서 가르쳐 주었다.

9.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 ‘문제’가 풀린다.

10. 사도행전 8장 27~35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던 중 <빌립>을 만나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온다. <내시>가 수레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고 하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러나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인지 도저히 풀 수가 없었다. 이에 <빌립>에게 “이 글의 주인이 누구냐. 사지로 가는 양이 누구를 말함이나.”하고 물으니, “나사렛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그가 우리와 같이 살았다. 그런데 모르는 자들이 그를 사지로 몰고 갔다.”대답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과감하게 확실하게 증거했다. <내시>는 이 말을 믿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기뻐하며 따랐다.

11. 구약사람들은 <답>을 ‘구약 주권권’에서 찾으나, <구약의 답>은 ‘새 역사인 신약’에 있다.

12. <찾던 것>은 ‘앞의 새로운 역사’에 있지, ‘구시대 역사’에 있지 않다.

13.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천륜의 법칙’이다. 하나님은 천륜의 법에 따라 ‘구시대의 희망’은 ‘새 시대’에서 이루게 하신다.
14. <구약의 예언>은 ‘구약 자체’에서도 풀어졌지만, <메시아에 관한 큰 예언>은 ‘새 시대 신약 때’ 이루어졌다.
15. 신약 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시대의 답’을 얻고, ‘의문’을 풀었다. <메시아 예수님>이 ‘답’이었다. 그는 비단 ‘종교세계의 답’뿐만 아니라 시대, 정치, 예술, 문화 등 각종 분야의 답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쓰고 행하셨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은 <구시대 문제의 답>을 ‘새 시대’에 주신다. <새 시대 주>를 따라가게 하기 위함이다.
17. <주>가 ‘시대의 답’이다. 고로 ‘주 자체가 답’이 되어 <행함>으로 문제를 풀어 준다.
18.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그 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했다. 이는 <불>로 ‘세상을 멸하며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 오면 <주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와 의문을 풀어놓는 것’을 말한다.
19.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의문’을 들고 와서 말하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풀어 주시리라.”하니,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의문을 풀어 주시며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셨다.
20. <세례요한>이 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주가 하는 일>을 전하게 하시며 의문을 풀어 주셨다.
21.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했듯이, 메시아는 ‘자기 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충성과 진실과 충심으로 역사를 펴 나간다.
22. <시대의 주>는 ‘동시성’으로 온다.
23. <재림주>는 ‘초림주 예수님과 같은 배경과 처지’로 온다. 그 역시 시대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민의 죄를 대신 하여 시대의 십자가’를 진다.
24. <초림 때>는 ‘죽음의 십자가’를 졌지만, <재림 때>는 죽지 않고 ‘환난의 십자가’를 진다. 그 기간은 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한 말씀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한 ‘10년’이다.
25. <주>는 시대의 주인이라 ‘시대의 때’를 맞춰 행한다.
26. <주>는 ‘구약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과 ‘신약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천 년 역사 당세에 모두 이루고 간다.
27. <주>는 결국 ‘하나님 창조목적의 인봉’을 떼고 신부가 되어, 따르는 자들과 그 뜻을 땅으로도 하늘로도 이룬다.
28. <주>는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한다. 그를 ‘세상’도 ‘사탄’도 못 이긴다.
29. <주>는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간다.
30. <주>는 ‘천년 궁’을 짓고 살면서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며, 민족과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시중’을 들며 할 일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31. <주>는 ‘성경의 일점일획’도 어기지 않고, 풀지 않은 것 없이 행한다. 결국은 시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시는 일임’을 인정하고 시인한다.
32. <주>는 ‘말씀의 철장 권세’로 비진리를 깨부수고, 이단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심판한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 년 역사’를 펴 나간다.
33. <주>는 구약과 신약 6000년 간 풀지 못한 ‘삼위일체의 인봉’을 떼서 가르쳐 준다.
3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내서 쓰고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 그는 ‘자신을 보낸 자의 말’을 한다.
35. <주>는 ‘시대의 마지막 역사, 천 년 성약역사’를 이룬다.
36. <주>는 ‘시대 하와’를 찾아서 말씀으로 만들어 세운다. 그러므로 주는 ‘삼위의 외적 증인’이 되고, 시대 하와는 ‘삼위의 내적 증인’이 되어 같이 행한다.
37. <주>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안 배우고도 안다.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하여 함께 행하기 때문’이다.
38. 말세 때가 되면 숨긴 것이 드러난다고 한 대로, 모든 것이 <주>로 인하여 밝혀진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메시아>다.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시대 주>라도 증거하고 전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2. <물건>을 만들어 놓았어도 필요한 자에게 알려 줘야 팔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보낸 자>도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서 그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다.
3.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해 주지 않았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주>를 각종으로 전해 주어, 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펴는 일’을 하게 해야 된다.
4. <세상의 육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 줘도 <하나님과 이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죽은 이야기’다.
5. <생명의 이야기>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대한 것을 알려 주어 생명길을 가게 하는 이야기’다.
6.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이야기의 핵>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여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축복을 받고, 같이 행해 주신다.
7.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영’이 함께하신다.
8. 매일 생각하기다. 매일 말해 주기다.
9. <자기가 하고픈 말>이나 하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를 구원한 주의 이야기>를 안 하면 ‘자기 삶’으로 끝나게 된다.
10. 사람은 매일 <말>을 해야 된다. 그 말 속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여야. 그래야 너의 희망과 축복을 이루며 기쁨으로 살게 된다.
11. 대화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이야기>를 안 해 버릇하면,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12. <전능자 삼위>가 늘 보고 계셔도, ‘이야기’를 해야 통한다. 스마트 폰을 안 켜 놓으면 종일 전화가 와도 모르듯이, ‘자기라는 스마트 폰’도 그러하다.

13. <정신 줄>, <생각 줄>을 놓지 말고, ‘삼위와 주’와 시간마다 분마다 대화하며 신부되어 살아야 된다.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를 펴는 자’밖에 모른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시대 성약 때, ‘휴거로 창조목적’을 이루셨다. 성자는 ‘성자의 육이 되는 주’에게 모든 사명을 맡기시고, 휴거 날에 주의 영과 예비 된 신부들의 영을 데리고 천국 황금성으로 가셨다.

3. 성자가 가시고, <주>는 땅에서 ‘성자의 육’이 되어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펴 나간다. 그리고 성자 대신 <성령>이 실제 영의 몸으로 오셔서 ‘땅의 주’를 증거하며, 따르는 신부들과 함께 ‘하나님 창조목적의 뜻’을 펴고 계신다. 고로 지금은 <성령과 주의 시대>다!

4. <성령과 주의 시대>에는 특히 ‘복직된 하와이자, 시대 증인이자, 시대 표준이 되는 신부대표’가 성령의 육이 되고, 주의 육이 되어 함께 역사를 펴 나간다.

5.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성자의 영’이 땅에서 떠나고,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다. 이와 같이 성약시대 때도 <이 시대 주가 십자가를 지면서 휴거역사를 이룬 후>에 ‘성자’가 주의 영과 따르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황금천국으로 가시고, ‘성령이 실제 영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같이 행하신다.

6. 성령님은 특히, <시대 주>를 증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신랑으로서 주와 따르는 자들을 신부로 삼고, 매일 ‘혼인잔치 역사’를 펴신다.

7. 성령님은 <증거자 곧, 시대 하와>를 쓰고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시며 ‘주’를 강하게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다.

8. <성령과 주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주’와 함께 역사를 펴신다. 고로 성령 충만, 주님 충만해야 된다.

9. 이 시대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과 <주>가 나타나서 말씀해야 일이 잘 된다. 또 그와 일체 된 <증거자>가 나타나서 말해 줘야 일이 잘 된다.

10. <시대 성령의 몸, 복직된 하와>가 나타나야, <성령>도 <주>도 그 몸을 쓰고 나타나서 일이 잘 된다.

11. <복직된 하와>, 그리고 <그와 일체된 시대의 하와들>이 나타나야 ‘창조목적 역사의 일’이 잘 된다.

12. <성령과 주>가 지금 이때 어떻게 행하는지 깨닫고, 어서 부지런히 행하여라.

13. <주>가 나타나고, <증거자>가 나타나야, ‘성령님’이 함께하며 역사하신다.

14.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주의 시대>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고, ‘주’가 없이는 안 된다.

15.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도록 ‘성령 충만’ 해야 되고, <주>와 함께 주의 생각으로 행하도록 ‘말씀 충만, 주의 생각 충만’ 해야 된다.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이 시대 역사>는 ‘가상적으로 기다리는 역사’가 아니고, ‘실체 주의 육과 함께 행하는 생시의 역사’다. 성령과 주와 따르는 신부들과 함께하는 ‘꿈의 실현의 역사’다.
2. <실체 역사>를 살아도 어느 때는 ‘지금 우리가 주와 같이 실체역사를 펴고 있는 것이 맞나? 이것이 실체인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성령과 주>와 함께해야 실체임을 더욱 실감하고, <증거자>를 통한 ‘성령의 말’을 들어야 더욱 확신하게 된다.
3. <성령과 주와 일체>다. 신부들이라면 ‘성령과 주’를 잊지 말고,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4. <성령과 주가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자>은 ‘죽은 자’다.
5. <성령과 주를 생각에서 잊은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6. <산 자>와 일체 되어 살아야, 행한다.
7. 매일, 매 시간마다 <성령과 주의 생각>을 중심하여 행해야 된다.
8. <성령과 주가 떠난 자기중심적 생각과 행위>는 ‘죽은 신앙의 삶’을 살게 한다.
9. <자기>를 중심하지 않고, <성령과 주>를 중심해야 많은 생명들을 구시대 사망권에서 새 시대 생명권으로 인도하여 ‘성약역사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뜻’을 이루게 된다.
10. 매일 <기도>와 <대화>다. 때에 따라 ‘성령과 주’와 실체로 대화하며 살아야 된다.
11. <성령과 주>와 떨어지면, ‘죽은 자’다. <마음과 생각>이 일체 되어야 떨어지지 않는다.
12. <성령의 마음과 떨어진 자>는 ‘죽은 자’다.
13. <휴거된 신부의 삶>을 절대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삼위의 신부의 몸’이 되어 ‘성령과 주의 생각’으로 살게 된다.
14. <성령과 주의 몸>이 되어 살아야 ‘성령이 시대에 따라 주시는 것’을 얻고 살게 된다.
15. <성령과 주>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을 펴며 매일 좌우로 흔들리지도 말고, 어떤 것에 치우치지도 말고 살아야 된다.
16. 지금은 <성령과 주의 시대>다! <성령과 주>도 ‘신부들’을 절대중심하고 사니, <신부들>도 ‘성령과 주’를 절대중심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잠언>

1.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하고, ‘일’도 한다.
2. <구약의 예언>은 ‘신약 때’ 이루어지고, <신약의 예언>은 ‘성약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 중에는 ‘신약 때’도 이뤄지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다.
3. <하나님의 역사>는 ‘한 틀’로 간다. <구 역사>와 <새 역사>가 나뉘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4. <축구 경기>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어 있듯이, <구약의 예언>도 ‘신약 때 이루어지는 전편 말씀’과 ‘재림 때 이루어지는 후편 말씀’으로 나뉘어 있다.
5.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다.” 했다. 이는 <과거 역사에서 이루던 것>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룬다는 것’이다. 다만, 똑같이 이루지 않고 ‘차원을 높여서 이 시대 급’으로 이룬다.
6. 같은 시대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연속되는 구시대 속에서 희망으로 기다리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은 말씀을 이룬 터전 위에서 새 시대를 이루며 산다.
7. <예언을 이룬 사람들>만 이룬 ‘예언’을 실감 있게 이야기하고 외치며 산다. <예언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 ‘예언 속’에 살면서, 실감 없이 희망과 소망과 기다림으로 산다.
8. <성자>는 지구상의 구원을 총 담당하시어 ‘시대마다 세운 자’와 일체 되어 그를 인도해 주셨다. <성자>는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땅에 오셔서 행하셨는데, 시대마다 차원을 높여서 행하셨다. <구약 때>는 ‘주인의 입장’으로 오셔서 ‘모세’를 중시하여 그 시대 사람들을 종급으로 대해 주시고, <신약 때>는 ‘부모의 입장’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쓰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아들급으로 대해 주셨다.
9. 이 시대에는 <성자>가 ‘땅에 보낸 구원자’와 일체 되어 ‘신랑의 입장’에서 행해 주셨다. 그러다 휴거 날, <성자>는 주의 영과 휴거된 영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
10. <성령님>도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성약 때도 ‘성령 역사’를 하시는데, 시대마다 차원을 높여서 행하신다. 그러나 <성령님>이 ‘직접 오시는 때’가 있고, ‘역사만 하시는 때’가 있다.
11. <성령님>이 직접 오셔도 ‘징조와 표적’이 일어나고, 역사만 하셔도 ‘징조와 표적’이 일어난다. 고로 시대적으로 봐야 ‘성령님이 실제로 오신 시대’인지, ‘역사만 하시는 시대’인지 안다.
12. <주>는 ‘가르치는 실력’, ‘행하는 실력’, ‘예언한 것들을 이루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는 ‘말씀의 주인’으로 와서 모든 예언을 성취한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주의 몸’이 되어 산다.
13. 지금은 <성자>가 가시고, <성령의 실존체>가 오셔서 가르치고 역사하시는 때다. 메시아는 그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다 <메시아>가 땅에서 떠나면, <성령님>도 땅에서 떠나시고, 역사만 하신다.
14. 지금은 성약시대로서 ‘성령의 실존체’가 오셔서 ‘살아있는 시대 주’를 쓰고 행하시는 <성령과 주의 시대>다. 고로 <성령과 주>과 일체 되어 행할 때 ‘진짜 신부’가 된다.
15. <주>와만 일체 돼도 안 된다. <성령과 주>와 일체가 되어야 ‘진짜 신부’가 되어 삼위의 사랑을 받는다.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금은 <신부시대>다. 하나님도 ‘신부’만 찾으시고, 주도 ‘신부’만 찾는다.
2. <부모>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녀’만 찾고, <신랑>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 처자식’만 찾는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약시대, 신부시대가 왔으니, 항상 ‘신부’만 찾으신다. 또한 ‘신부로 될 자’를 찾으신다.
3. 하나님은 <6000년의 섭리역사>를 결국 ‘신부 찾는 목적’을 두고 행하셨다. 마지막 역사는 ‘신부의 역사’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신랑’이시다. 항상 <주체>는 ‘신랑’이고, <대상>은 ‘신부’다.
5. <성약역사의 주인 메시아>만이 ‘신부’를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해서 만든다.

6. <성령님>도 ‘우리의 신랑’이시다. ‘주체’이시기 때문이다. 항상 <주체>는 ‘신랑 입장’에 있다.
7. 어느 시대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대상>이 되어 ‘진짜 역사’를 제대로 펴 수가 없다.
8. 이 시대는 <성령과 주가 실제로 행하시는 성약역사>로 ‘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 펴는 당세 역사’다.
9. <신부>로 갖추고 살아야, ‘신부’다.
10. <신랑>인 ‘주’는 갖췄으니, 이제 <신부>가 갖춰야 된다.
11. <신부>가 갖추지 않으면, 신부시대에 살아도 ‘신부’ 같지 않다.
12. <신부시대>를 맞고 ‘신랑이신 주’를 만났어도, 깨닫지 못하면 ‘신부’인지 모른다. ‘육적인 이성의 사랑’이 아닌 ‘영적인 정신의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22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가짓수는 ‘수천 가지’도 넘는다. <그 많은 죄들 중에 제일 큰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주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2.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수 없다. 본인이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고하지 않음으로 용서해 주려고 해도 용서해 줄 수가 없다.
3. <하나님을 믿고 산 자>는 ‘죄’를 지었어도 죄를 고하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죄’가 사라져 버린다.
4.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은 죄’가 영원까지 존재하고 그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자>들은 ‘스스로 영생을 파괴시킨 자들’이다.
6.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은 죄>가 그렇게도 크다. ‘영원하신 전능자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7. <무지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살아라. <무지>가 ‘죄’다.
8.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달으면, 매일 스스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9.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10. <믿음>으로 ‘죄인’도 ‘의인’이 되어 사망의 인생을 벗어나게 된다.
11.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한 자>는 행하는 것마다 ‘죄’가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만사의 행함’이 다 ‘죄’가 된다.
12.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인데,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된다.
13.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4.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치 않은 것>도 '죄'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모시고 섬기면, 그 행위를 '죄'로 보지 않으신다.
15. <하나님이 보낸 주를 믿지 않는 것>도 '죄'다. 그의 말을 믿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그 시대의 목적과 뜻'을 펴시기 때문이다.
16.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인데, 어찌 <안 믿는 것>을 '죄'라고 할까? <전능자 하나님과 그가 보낸 주>를 믿지 않고 행하면 '사망'으로 가게 되니, 안 믿는 것을 '죄'로 본다.
17.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육신이 죽은 후뿐 아니라 육신이 살았을 때도 그 영이 '하나님을 불신한 사탄들의 세계, 지옥 쪽'에 속해 산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가 된다.
18. <지옥에 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고, '믿었어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참 되게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19. <하나님을 믿은 것>이 '의'이며, 그 의로 '죄와 사망'을 벗어나게 된다.
20.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탄의 것'이 된다.
21.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로 큰일을 하는 자'다. '영원한 큰일을 한 자'다.
22. <자기를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의 일을 제대로 한 자>는 '자기를 위해 최고로 큰일을 한 자'다.
23. 저마다 <이 시대 구원을 이룬 자>가 '제일 큰일을 한 자'다.
24. <자기 영을 영원토록 살게 한 자>가 '가장 큰 일을 한 자'로, '영원토록 성공한 자'다.
25.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므로 <시대 휴거>를 이루고, 영이 영원토록 살게 했으니, '최고 큰일'을 한 것이다.
26. 오직 <시대 보낸 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로 인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살아야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27. 하나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다. 우상적으로 육에 속한 사신(邪神)들을 믿으면, 오히려 믿는 만큼 '죄'가 된다.
28.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를 믿지 않은 자로서 '사망'으로 간다. <중요>
29.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시대>도 아니다. 구약 4000년과 신약 2000년 동안 예언했던 <천 년 혼인 잔치 시대>다.
30. 지금은 <신부 시대, 사랑의 시대>다. 하나님이 종교역사를 시작하신 이래로 '최고의 목적을 행하는 시대'다.
31. 구약 때나, 신약 때나, 마지막 성약 때나 <유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는 목적>은 '오직 사랑'이다.
32. <구약시대 때>도 '모세의 율법말씀'을 중심으로 종으로서 삼위를 사랑하는 신앙을 해 왔고, <신약시대 때>도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신약말씀'을 중심으로 자녀로서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신앙을 해 왔다. <마지막 성약시대> 역시, '주

를 통한 시대 말씀'을 듣고 신부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는 신앙의 때다.

33. <이 시대>는 '구약시대같이 하나님을 종으로서 사랑하는 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같이 하나님을 자녀로서 사랑하는 시대'도 아니다. '신부가 되어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신앙의 때'다.

34.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셨다. <성약 신부 시대 때>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룬 신부'가 된다.

35. <육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 '육신'이 죽으면 못한다. 고로 영원한 사랑을 하도록 <마음의 사랑, 정신의 사랑, 영의 사랑>을 해야 된다.

36. <육의 사랑>은 '육에 속한 자'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마음의 사랑, 정신의 사랑, 영의 사랑>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37. <사랑>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

38. 공의롭고, 영원한 <마음의 사랑, 영의 사랑>이다.

39.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라. <남녀가 공통되게, 공의롭게 하는 사랑>이다.

40. 예수님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라." 하셨다. 이 시대 주도 "<하나님이 보낸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사랑의 표준을 주었다.

41. <주>를 진짜 사랑한다면, '주의 말'을 지켜 행해라. <주의 말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다.

42.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가 '주 사랑에 불타는 자'다.

43. <유대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을 맞는 것을 실패했듯이, <이 시대 신부들>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휴거되는 데에 실패한다.

44. <휴거의 비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을 '육적 사랑'으로 생각하면, 주가 없는 930년간은 '사랑휴거'를 못한다. 고로 '육적 사랑'이 아니고 '영적 사랑'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 사랑'을 주장하며 가야 된다!

45. <주가 있으나, 없으나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랑>이다. 이러한 <마음의 사랑, 정신적 사랑, 영적 사랑>이 '이 시대 휴거역사, 신부역사'를 이루게 한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믿음>이 변치 않아야, '영원한 나라'를 상속 받는다.

2. 하나님을 믿더라도 <시대>에 따라 믿어야 '시대의 구원'을 받는다.

3.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대개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산다. <시대 주>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얼마나 '큰일'을 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조건을 세운 자들'이다.

5. <주가 없는 신앙>은 ‘살았다 하나 죽은 신앙’이다.
6.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육도 영도 사망에 처해 살고 있는 자’다.
7.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보낸 자>와 일체 되지 않고서는, ‘시대의 복음’을 전해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8. 깨닫는 만큼, 실감 있다.
9. <주가 살아있을 때> 믿고 따라야,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펴시는지 ‘가장 실감 있게’ 알 수 있다.
10. <성령>은 ‘주가 세상에 온 것’을 증거하며, ‘주’를 쓰고 행하기 위해 오셨다.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믿어야, 모든 것이 시작된다.
2. <사람>도 누구든지 믿어주지 않으면, ‘대화’도 안 되고 ‘일’도 안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믿어드리지 않으면 ‘대화’도 안 되고, ‘구원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남’이 된다.
3. <세상에서 제일 큰일>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일’이다.
4. <사람>이 제 나름대로 보람과 희망을 이루며 소위 천국을 이루고 살아도 모두 ‘시한부 인생’에 불과하다. <시한부 인생>이란, ‘죽을 날을 선고받고 사는 자’를 말한다.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육에서 끝나는 시한부 인생들’이다. ‘영원한 삶의 이상세계’를 찾아야 된다.
5.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값’을 받게 된다.
6. 죄의 근본을 보면, <사람에게 지은 죄>와 <하나님께 지은 죄>로 구분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어느 때는 ‘사람’에게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 그런데 어느 때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죄가 안 된다. 이를 잘 알고, <죄를 지은 대상>에게 ‘회개’해야 된다.
7.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받아도 모른다.
8.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법칙>을 벗어나면 고생되고, 다치고,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죄값’이라고 할 수 있다.
9.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죄를 지을 환경>에 가도 죄를 안 짓게 된다. 왜 그럴까? <죄>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아스팔트길’로 가면 좋지 않은 차라도 별로 안 흔들린다. 그러나 좋은 차라도 ‘자갈길’로 가면 흔들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10. 한 주 동안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목욕탕에 가서 깨끗이 씻고 다음 주를 준비한다.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어둔 밤이 오면, 깨끗이 씻고 내일의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 이제 일 년을 다 마쳐간다. 하루해가 다 가도록 일을 했으면 씻어야 되듯이, 올해의 일을 다 했으니 모두 <그릇된 죄>와 <불의한 일들>을 깨끗이 ‘회개함’으로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아야 된다. 더러우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함께하지 않으신다. 회개하여 깨끗게 되면, 함께하신다.
11. 사탄은 <죄>를 ‘자기 것’으로 삼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를 ‘자기 주관권에 있는 자’로 보고 다스린다.
12. <사탄>을 벗어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전에 하던 짓을<안 하는 것>이 ‘회개’다.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주>를 믿어도 자기 삶 속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2.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야 된다.
3.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 줄 자>가 없어서 ‘불행한 자’가 된다.
4. <주와 일체> 되어야 ‘그 힘’으로 제대로 하게 된다.
5. <회개>해야, ‘자기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진다.
6. <회개해야 됨>을 알고 확실히 고해야, ‘자기 죄’도 확실히 생각한다.
7. <죄>는 ‘자기 몸의 병’과 같아서, 회개하여 청산하지 않으면 ‘죄’로 죽기까지 한다.
8. <병>이 오면 ‘즉시’ 처리하듯이, <죄>는 ‘즉시’ 처리해야 된다.
9. <의를 알고 행치 않음>도 ‘죄’다.
10.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는 것>도 ‘죄’다.

<2019년 12월 29일 주일 잠언>

1. <마태복음 25장 23절>은 주인이 종들에게 개성대로 일을 맡긴 후에 그 행한 대로 대해 준 말씀이다. 주인은 <소질과 재능과 능력>대로 일을 맡기고, ‘행한 대로 대가’를 주었다. <맡긴 일을 잘한 자들>은 그 대가로 ‘일을 또 맡기는 축복’을 받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살게 해 주는 큰 축복’도 받았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일’을 맡기시고, 항상 ‘그 일’을 잘하도록 도우셨다. 그리고 ‘맡긴 일’을 하면 함께해 주시며 ‘대가’를 확실히 주셨다. 그로 인해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도 충성하며 일할 수 있었다. 이것도 ‘받은 축복 중의 하나’다.
3. 주인에게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하여 ‘두 달란트’를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도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한 달란트’도 더 남기지 못했다. 섭리사에서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 가지 사명을 받은 자’고,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섯 가지 사명을 받은 자’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한 가지 사명을 받은 자’로 자기를 관리하며 구원과 사랑휴거를 이루는 일을 맡겼다.
4. <자기 신앙을 지킨 자>는 ‘한 달란트를 더 남긴 자’다. 성경에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고 행하지 않은 자>는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자’와 같다. <자기 신앙과 구원>을 책임지지 않으면, ‘책망’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
5. <두 달란트를 받고 두 달란트를 더 남긴 자>는 ‘섭리사에서 두 가지 사명을 받고 맡은 일을 잘한 자’로 착하고 충성된 자다. 그러므로 다시 일을 맡김으로 더 남기게 해 주고, 주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게 해 준다.
6. <다섯 달란트를 받고 다섯 달란트를 더 남긴 자>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사명을 맡아서 잘 행한 자들’로 먹고, 입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열심히 섭리의 사명을 하며 뛰고 달린 착하고 부지런한 충성된 자들이다. 이들 역시 그 욕도, 영도 차원대로 주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 준다.
7. <주의 즐거움>은 ‘섭리 속의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다. 때마다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들’과 ‘이상세계의 행사

들'이다.

8.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했다. 이는 <말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말이다. 신부로서 진정한 마음과 행실로 생명관리를 하고, 사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몸으로 부딪히며 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들 속에서 충성으로 행해 온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9. <생명의 면류관의 실체>는 구원받고 휴거되어 ‘생명권에 사는 자기 육과 영’이다. 이는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보다 더 빛나는 면류관이다.

10. <황금천국의 영들>을 보면, 영체에서 ‘빛’이 난다. 금 면류관보다도 황홀하게 빛이 난다. ‘아름다운 빛’, ‘의의 빛’, ‘충성의 빛’, ‘착한 빛’이 나고, ‘마음의 빛’, ‘행함의 빛’, 주와 형제들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사랑의 빛’이 난다. <그 육신>에게도 행한 대로 의의 빛, 착한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충성의 빛이 나서 보는 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11. <세상에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같이 빛나는 존재도 없다. 어떠한 만물보다도 ‘빛’이 난다. 아무리 보석이 빛을 내고, 환경이 빛을 내도 ‘사람의 빛’을 따라올 수가 없다.

12. 제대로 못 하면 사람같이 ‘누추한 존재’도 없고, 제대로 잘하면 사람같이 영광과 이상의 ‘빛을 발하는 존재’도 없다.

13. 하나님의 시대말씀을 가지고 말은 일을 행함으로 <자기를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자기 의’다. 그 빛나는 몸으로 섭리를 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빛을 발하고, 성공하게 된다.

14. <개인이 승리하는 삶>은 곧, ‘섭리사가 승리하는 삶’이다. 고로 섭리사가 잘 되려면, ‘개인 한 명 한 명’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

15. <섭리사>가 잘 돼도, <개인>이 잘 안 되고, 못 살고, 기쁨과 이상이 없으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16. <그릇된 종교>를 보면 종교가 잘 됐다고 하지만, 정작 <따르는 자들>은 혹사를 당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는 ‘실패한 종교’다.

17. <종교>와 <개인> 둘 중에 하나만 잘 됐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잘 되고 <백성>도 잘 돼야 ‘성공한 민족’이듯이, <종교>가 잘 되고, <개인>도 잘 돼야 ‘성공한 역사’다.

18. <주>는 ‘머리’요,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 <머리의 승리>는 곧 ‘지체의 승리’다.

19. <인도하는 자>와 <따르는 자들>은 ‘같은 운명’이다. <따르는 자들>이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고 행하며 ‘그 몸’으로 섭리를 뛰어야, 섭리사도 성공하게 된다.

20. <신앙>을 지키며 ‘충성’으로 살아왔으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신부들아, 또 일하며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2020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2. <이 시대 말씀>을 받고, ‘방향’을 앞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3. 그날그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받아 행하면, 신이 된다.

4. <이 시대 말씀>을 받아야 ‘이 시대의 신’이 된다.

5.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갈 길을 잃게’ 된다. 매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행해야 갈 길을 잃지 않는다.
6. 선교의 해에 <전도>하려면, ‘시대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이 자기 생각에 차야, 육으로 행하게 된다.
7.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전해 줘야 된다.
8. 자기가 말씀을 완전하게 알고 전해 줘야, 들은 자도 분별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
9. 말씀을 확실히 전해 줄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적 표적이 일어난다.
10.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이 되어 잘하게 된다.

<2020년 1월 3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요한계시록 21장 6~7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했다. 이와 같이 <2019년 한 해 동안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따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해온 자들>은 승리함으로 ‘시대 신부가 되는 상속’을 받았다.
2. <어제의 승리>는 ‘오늘의 승리’다. 어제 승리한 발판 위에 서서 굳세게 밀어붙이면, 오늘도 얼마든지 승리한다.
3.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알파 역사’에서 ‘오메가 역사’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역사를 행해 오셨다.
4. <종교역사의 처음>이 ‘창세기의 아담하와’라면, <끝>은 ‘마지막 성약역사’다.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같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시작이 미약했어도, ‘맨 마지막 역사를 뛰는 섭리사 신부들’은 찬란하게, 끝장나게, 창대하게 뛰어야 된다.
5. <마지막 역사>는 ‘끝장내는 역사’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신부들이 모일 때마다 무한히 행해 주시며 이적과 표적을 퍼 부어 주셨다. <하나님>도 끝없는 능력의 역사를 감행해 오셨고, <성령님>도 끝도 없이 우리를 감동 시키시며 신바람나게 이끌어 오셨고, <주>도 꾸준하게 초인간적인 삶을 살며 흔들림 없이 뛰어 주셨다.
6. <마지막 역사를 뛰는 자들>은 정말로 과감해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된다. ‘주의 끝장내는 정신과 사상과 마음’을 받아 행해야 된다.
7. <맨 마지막 역사>는 ‘천 년 역사’인데, 육신으로는 천 년 동안 뛰지 못한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끝장나게 뛰면 ‘당세에 천 년 역사를 뛰고 가는 것’과 같다. <육신>은 죽어도 <역사>는 천 년간 남아지니, 당세의 사람들이 끝장나게 해놓으면 ‘천 년 역사를 승리하고 가는 것’이 된다.
8. <마지막 역사>는 ‘휴거 역사’다. <섭리역사>는 ‘휴거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목적’을 이루었으니, ‘최고의 클라이맥스 역사’요, ‘오메가 역사’다.
9.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한 종교>만이 ‘참 종교’로서 끝까지 남아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종교>는 ‘방계 종교’로서 가다가 사라진다.
10. <사랑하는 자>만이 ‘끝까지’ 행할 수 있다. <끝까지 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11. <신부의 주권>은 ‘사랑’이다. <신부의 참 목적>도 ‘사랑’이다. 사랑하면, 변하지 않는다.
12. <주의 말씀>을 ‘귓속’에 ‘뇌 속’에 넣고, 불이 되어 행하여라.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나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한 자는 ‘시대 신부’가 되게 해 주리라.
13. <주>와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된다. 나무를 심을 때 ‘가장 맛있는 방향’으로 틀어서 세우듯이, 신앙을 할 때도 ‘주’께로 방향을 틀고 오면 유익과 흑자를 보고 영원히 빛나게 된다.
14. <주>와 ‘생각과 방향’이 정확하게 통해야, 주의 바늘 길을 통과하여 하늘 앞에 연결된다.
15. <말씀>을 받아야, 방향을 잡고 ‘신’이 된다.
16. <새 시대 말씀을 듣고, 방향을 알고 행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17. <새 시대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됐고, 종교 역사 6000년 동안 최고로 ‘궁금했던 문제들’이 풀렸다.
18.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 하나님의 <이 시대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이 시대 급의 모든 것’을 알고 신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 나간다.
19.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적 차원으로 아는 신’이 된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몰라서 ‘자기 생각’만 실천한다.
20. <말씀>을 받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신이 되는 방법 중 하나’다.

<2020년 1월 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답>이 확실하지 않아도 빨리 말해 주는 쪽으로 가 버린다.
2.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못 한다.
3. <구약인들>은 ‘대망하고 기다린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어도 그 중의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다음 역사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고통을 받으며 보냈다. 지금껏 그러하다.
4. <예수님 이후 신약인들>도 ‘최고 대망했던 말세, 메시아 재림, 부활, 휴거,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가 와서 이미 이루고 지나갔는데도 그 중의 하나도 못 이루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왔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다. 신약역사 2000년을 기다리며 보냈는데, 성약 1000년 역사가 시작됐어도 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말세>가 지나가고, <메시아 강림>도 지나가고, <영적 부활>도 이루어지고, <휴거>도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 년 왕국 이상세계>도 이루어졌다.
5. <역사가 일어나는 곳>만 알고, <끝까지 따르는 자들>만 알고 따른다. 고로 ‘아는 자들’이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추가 잠언) 1. <배우고 남은 것>이 ‘흑자’다. 2. <음식>도 ‘먹고 몸에 남은 것’이 흑자이듯이, <말씀>도 ‘배우고 남은 것’이 흑자다. 결국,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남은 것’이 흑자다. 3. 왜 <성령과 주의 시대>인지 알고,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된다. 4. <성령과 주의 시대>에는 ‘성령과 주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더욱 빨리 들어가 역사를 뛰게 된다. 5. <그날에 할 일>은 ‘그날’이 지나면 못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성령과 주의 시대에 할 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못 하게 된다.
6. <주>를 고상하게 증거해야 된다.
7. <주>가 살아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차 선교’는 연속적으로 해야 된다. 가다가 보면, ‘주’가 사라진다.

8. 앞으로 <주가 최고로 뛰는 기간>은 ‘15~20년’이다. 그 중 <극적인 기간>은 ‘10년’이다. 이때가 ‘실감 있게 될 수 있는 기회’다.

9. <실감하지 못하는 자>는 ‘주’가 앞에 와 있어도 실감을 못 한다.

10. <세상의 아이큐>는 정확하지 않다. 아이큐가 높으면, 높은 만큼 성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해당되는 센터’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아이큐>는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예리할수록 높아진다. 그러므로 <아이큐가 높은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생각이 예리한 자>가 성공한다.

11. <일>을 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는 사람’보다 ‘두 가지를 생각하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장 없이 하는 사람’이 아이큐가 더 높다. <인생>도 ‘육신과 영혼이 사는 것까지 생각해 놓고 사는 사람’은 아이큐가 3000도 넘는다.

12. <메시아>는 ‘정신과 생각’이 투철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반드시 답이다. 여기에 가면 반드시 있다.’하고 ‘확신’을 가지고, ‘후회 없이’ 행한다. 또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내가 세례요한의 사명을 할 자인가? 메시아인가?’하며 생각이 흔들흔들한다.

13. <세례요한>은 옥에 갇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하고 물으며, 흔들렸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게 행하지 않으셨다.

14. <예수님>은 한 번도 ‘확신 없이’ 말하거나, ‘확신 없이’ 행하지 않으셨다.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너희가 기다리던 주가 맞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시며, 한 번도 “내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다.

15. <메시아를 핍박하고, 악평한 자들>은 ‘그 영’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예수님을 불신한 ‘유대종교인의 영’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수님을 무지로 대한 고통과 괴로움보다 차라리 흑암의 세계에서 받는 고통이 낫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아도 찢값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터지는 가슴을 견디지 못합니다.” 했다.

16. <하늘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받는 고통>은 그 어떤 고통에도 비할 수 없다.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다. 이 고통에는 모든 사람들이 걸려 들어간다.

17. 선생도 <하늘의 심정>을 몰랐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었다. 선생이 ‘시대 선고’를 받았을 때, 성자에게 “나를 사랑하시나요?”하고 물었다. 성자께서 “네가 내 심정을 그렇게 모르느냐?” 하시자,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왔다. ‘5분 간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었다.

18.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2020년 1월 5일 주일 잠언>

1. <이단>은 ‘진리’라고 들고 일어나서 외쳤어도 아니다.

2. <이단 종교>는 성경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구를 자기 것으로 삼고 주장하고 외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끝까지 가 볼 것도 없이 결국 무너지고 없어진다.

3.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셨듯이,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고 살아야 된다. 특히, 반드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성경>과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성경>을 구분하고 알아야 된다.

4.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사도요한이 영계에서 본 현상들이다. 이는 거의 신약 예수님 때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일어난 영계의 상황들인데, 그 중에 다시 오는 메시아에 관한 재림의 예언들도 몇 군데 있다.

5. <요한계시록 19장 11~13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4~1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다. <백마를 탄 자>는 ‘메시아’를 말한다. 그는 ‘충신과 진실한 자’로 <입의 검>, 곧 ‘자기 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행하며 철장 권세로 다스린다. 그를 따르는 자들 역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초림 때 예수님>도 그러했고, <재림 때 메시아>도 ‘신약 역사를 재현’하며 이 시대급으로 그와 같이 행한다.

6.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며 <택한 자>에게는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무리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했다. 14만 4천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원받은 자들의 수>다. 또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가르쳐 준 새 시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상징한 수>로 그들이 ‘새 역사의 인침’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들은 ‘온전하고 절대적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펴는 자들’이다.

7. <하나님과 메시아의 말씀>을 전해 주어 듣고 믿고 따르게 하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친 것’이 된다.

8. <메시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메시아가 인친 자>는 ‘곧 하나님이 인친 자’가 된다.

9.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사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했다. 흰 돌은 ‘메시아’를 말한다. 그는 <자기 밖에 모르는 말씀>을 가져와서 행한다.

10.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보다도 같고 큰 우렛소리보다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다. 이는 메시아가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그의 <새 노래 소리>가 마치 ‘번개 치는 큰 우렛소리’와 같고, ‘하늘에서 나는 신들의 소리’와 같다는 말이다.

11. <새 시대>에는 ‘절대적인 메시아의 말씀의 역사’와 ‘시대의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12. 섭리사는 <절대적인 시대 말씀>을 듣고 배웠다. 종교의 최고 핵심 말씀인 말세, 메시아 강림, 부활, 휴거, 이상세계, 천 년 혼인 잔치 역사,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에 대해 배우고, 그 뜻을 이뤄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노래>를 받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우리 외에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고, 부를 자도 없다.

13. <이단 종교>는 ‘시대 말씀’도 없고, ‘새 노래’도 없다. 자신들이 성경을 이룬다고 하나, 하나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신부 말씀’과 ‘휴거 말씀’도 없고, ‘혼인 잔치 말씀’도 없다. 모두가 새 역사를 편다고 하나, ‘기존의 주관권 안’에 있다.

14. <하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과 ‘땅에 보낸 구원자’가 같이 행한다.

<2020년 1월 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배우지 않으면, ‘좋은 것’을 모른다.

2. 행하지 않으면, ‘좋고 나쁜 것’을 모르고, 실감하지도 못한다.
3. <수석>도 배우지 않으면, ‘어떤 돌이 좋은지’ 보아도 모른다.
4. <수석>은 ‘4가지를 갖췄는가’를 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한다. ‘돌의 강도’와 ‘크기’와 ‘색깔’과 ‘모양’이다. 이와 같이 <사람>도 갖추 것을 갖춰야 ‘가치’가 있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이 영원히 존재하게 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영육의 형상>이 아름다워야 되고, <마음>이 강해야 되고, <생각>이 ‘빛’이 나야 된다. 그 외에 <말>도 잘하고, <자기 재능>도 있어야 된다.
5. 배워야 <아름다운 것>도 알고, <가치성>도 알고, <분별>도 하고, <실패>도 하지 않고 실수 없이 잘한다.
6.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 차원’이다. <신>과 같이 행해야 ‘인간으로서 신’이 되어 행하게 된다.
7.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면, 즉 <생각>이 낮아지면, ‘그 이상’을 못 본다. 보는 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된다.
8.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인간으로서 신이 된 그 보낸 자>와 동행하며 살아야 차원이 높아지고, 이상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9.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면, ‘그에 해당되는 필요성’을 깨닫고, ‘매일 꾸준히 오르기’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생각이 일체>되면, ‘그날그날 차원 높여 행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해 얻는 것들’도 너무나 많다.
11.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그런대로 차원 낮게 행하며 만족하면서 살게 된다.
1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은 ‘종일 생각하고, 1년 내내 생각해도 못하는 것’을 순간 생각나게 해 주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면, ‘10년 동안 생각해도 못할 것’을 순간에 깨닫게 해 주시고, 하게 해 주신다.
14. <신의 생각과 일체> 되면, ‘신’같이 생각하고 ‘신’같이 행하게 된다.
15. <뇌>는 ‘생각한 대로’, ‘입력된 대로’ 행하게 된다.
16.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생각하신다. 그 생각이 통하여 임하면, <신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신이 행하듯’ 행한다.
17. <뇌의 저장>은 ‘반복’으로 입력되어 저장된다. 저장돼도 <생각>을 해야 ‘기억’되어 생각이 나게 된다.
18. <좋은 것>을 들으면 그때는 기억해도 ‘뇌의 기억세포’가 늙으면 바로 잊게 된다. <반복>하여 생각해야 ‘기억’이 나서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실체’가 이루어진다.
19. <행하는 것>이 ‘실체’가 된다.
20. 행해야 표가 나서 결국 ‘실체’가 이뤄진다.
21. <가치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기’다. ‘그로 인해 얻기’다.
22. 기억날 때 즉시 행하라! 그 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추가 잠언) 1. 아무리 새 역사를 주장해도,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셔야 새 역사다. 2. <기성>은 어느 교회를 가 봐도 다 ‘비슷한 교리’를 외치고 있다. <말씀>이 없으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 자리에 앉아서 외치는 ‘앉은뱅이 신앙’을 한다. 3. <새 말씀>이 있어야 ‘구시대’를 벗어난다. 4. <새로운 역사>는 ‘구시대와 완벽하게 다른 새로운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새 말씀>을 가지고 개혁되고, 새롭게 된다. 5. <이단종교>도 구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자녀권’에 속해 있다. 구시대 말씀에 ‘몇 마디’를 더 섞어서 이야기한다고 새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다. 6. <신부시대>에는 ‘성령’에 대해 알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7. <성령>과 일체 되지 않고는 ‘신부’가 될 수 없다. 8. <하나님의 6000년 종교역사>는 ‘신부를 찾기 위한 역사’였다. 9. <진리의 하나님>은 절대 ‘땅의 보낸 자’를 통해서만 신부 말씀을 전하시어 ‘시대 신부들’을 만드시고, 밤낮으로 ‘신부’만 쳐다보신다. 10. <기독교>는 천 년이 가도 ‘이 시대 인봉’을 땔 수 없다. <성경의 인봉>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생활’로 떼기 때문이다. 11. <성경의 깊은 진리의 인봉을 떼는 것>은 껌 딱지를 떼듯이, 엇가락 들러붙은 것을 떼듯이 쉬운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해야, ‘그 단계의 인봉’을 떼다. 12. 마치 ‘형겉’으로 덮어 놓으면 바깥 세계를 못 보듯이, ‘백지장 한 장’이라도 가려져 있으면 옆 세계를 못 보듯이, <영계>도 ‘그 차원’에 오르지 않으면, 밑의 단계 밖에 못 본다. 13. 인생살이, 모르면 무지로 왔다가 무지로 간다.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생시에 행한 것을 꿈이나 환상으로 보일 때 생시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영적으로는 다르다고 ‘그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2. <생시>에 ‘이 사람’과 일을 행했어도 <꿈>에는 ‘저 사람’과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는 <생시에 같이 일한 사람>이 ‘꿈에서 보인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3. <생시>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꿈>에 ‘동물’로 보였다. 그 사람이 ‘꿈에 보인 동물 같은 처지’라는 뜻이다. 꿈에 좋은 동물 혹은 나쁜 짐승으로 보여도 ‘무섭게 보였느냐, 순하게 보였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선악 간에 깨닫게 해 준다.
4. <꿈>에 깨끗함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깨끗함’을 보여 준 것이고, 더러움을 보일 때는 ‘그 사람의 죄요, 더러운 행실’을 보여 준 것이다.
5. <꿈꾸는 자>가 생시에 ‘어떤 자를 자기 생각대로 나쁘게 인식’하면, 자기 인식대로 나쁘게 꿈을 꾸게 되어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6. <성경에 비유와 상징으로 계시한 말씀들>을 볼 때, 누구를 보고 말했는지 ‘그 말씀의 핵이 되는 자’를 먼저 알아야 된다. <타인이 행한 것>을 계시해 놓았는데, 성경의 내용이 좋다고 ‘자기’로 해석하는 자도 있다.
7.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무리>는 ‘구약 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 자들’과, ‘신약 당세 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말한 것이 근본이다. 그러나 <그릇된 이단종교의 지도자>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8. <구약시대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신 말씀’이다. 그때 행하였기에 ‘그때’ 말씀하셨고, 예언들도 ‘그때’ 이루어졌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후대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9. <신약시대의 예언과 말씀>도 거의 ‘예수님 당세 때’ 이루어졌고, ‘그 후 2000년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이루어졌다. <메시아 재림에 관한 말씀>만 ‘새로운 천 년 역사 때’ 이루어진다.
10. <성경과 역사>는 ‘쫓개서’ 봐야 된다.
11. <구약의 종교인들>은 ‘이미 예수님 때 이루어진 말씀’을 아직도 기다리기도 한다.

12. <천 년 혼인잔치 역사>도 이미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쓰고 이루시고 있는데, 신약인들은 때가 왔어도 기다리고 있다.

13. 모르면, 모르는 대로 따지고, 계산하고, 기다리고, 희망한다.

14. <신앙의 잠>, <시대의 잠>을 자서 모르면, ‘희망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지나갔어도 모르고 기다린다. 자신이 잠잘 때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다 먹고 치웠는데, 이후에 왜 식사를 안 하나고 하며 기다리는 격이다. 지금은 <때>로 보아도 ‘신약역사의 정한 때’가 지나고, ‘성약 천 년 혼인잔치를 하며 가는 때’다.

15. <하나님의 종교역사>뿐 아니라, <세상의 이지가치 일들>도 모르면 시대가 가고 끝났어도 기다리고 산다.

16. <아는 자>가 하나님같이 ‘신’이 된다.

17. <하나님이 보낸 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운 자>는 ‘아는 신’이 된다.

18. <하나님의 역사>는 ‘아는 자’를 표상으로 두고 펴 나간다.

19. <매일 알기>다. 하나님은 <아는 자>를 통해 ‘그날에 필요한 역사’를 펴신다.

20. <좋은 꿈>을 꾸려면, ‘생시’에 온전하게 행하여라.

21.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목적’을 둔 흐름’을 알고 깨닫는다.

22. <성경에 예언된 깊은 말씀>은 ‘그 말씀을 풀어 주는 사명자’가 와야 푼다. <이 시대의 인봉된 말씀>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가 와야 푼다.

23. <성경>에는 수학공식이나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풀듯이 풀 말씀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깊은 인봉>은 ‘성경의 주인공 구세주’가 와서, 그가 하나님과 일체 되고 그 육신이 되어 ‘뜻’을 펴면서 풀어 행한다. 고로 <인봉된 말씀>은 알아서 배워서 알지 못한다. ‘뜻을 이루면서 푸는 것’이다.

24.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나 메시아 예수에 관한 말씀’이다.”하셨다(요5:39). 고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행하면서’ 신약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펴셨다.

25. 이 시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가 ‘몸’으로 행할 때, 그 <행한 역사>로 인하여 ‘성경’을 풀게 된다.

26. <행한 역사로 성경을 푼다는 것>은 ‘행한 대(大) 공적(功績)’으로 성경을 푼다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푼다.

27. <이론>만 알고, <답>만 안다고 성경을 푼다면,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무엇이 유익하시겠느냐.

28. <답>을 알고 행해야, ‘유익’이 오고, ‘복’을 받는다.

29. 노력하면, ‘일반적인 답’은 안다. 그러나 행해야, ‘인봉된 큰 말씀’을 안다.

30.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낸 주의 몸을 쓰고 행하실 말씀들>은 일반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

31. <무식한 자들과 불법한 자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어 자기화하나, 모두 드러나 ‘영생 길’을 상실하게 된다.

<2020년 1월 1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보낸 사명자>가 행해야 속이 시원하다. 이 시대에 ‘주의 손발’이 되어서 행하려면,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가 제대로 ‘하나님 역사’를 펼 수 있다.
2. <주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니, 금주는 <외람되게 주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주’가 ‘말씀으로 질그릇 깨부수듯 하는 주간’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이 터전 위에 굳건히 서서 <이치에 맞지 않게 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릇됨을 말해 주고, ‘온전한 진리’를 전해줘야 한다.
3. 쇠덩어리도 계란덩어리도 부딪혀야 깨지듯이,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부딪혀봐야 안다. <그릇된 자들>은 안 부딪히기 위해 자꾸 도망친다. <질그릇 같은 진리>는 ‘시대 주의 말씀’에 부딪혀야 깨져버리고, 존재를 못하게 된다.
4. 이 시대는 <진리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다. 그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라도 여기서 벗어난 자들은 ‘구시대에 속한 자’요, ‘그릇된 자기중심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5. 우리는 <시대 주>와 같이 ‘한 지체’가 되어 살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의 길만 가서는 <그릇된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으니, 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말든지 ‘시대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6.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으니,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권세>를 생명이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의 뜻’을 펴야 된다.
7. <하나님의 말씀>이 ‘보낸 자의 육신’이 되어 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말씀의 노선’을 굳건히 타고 가야 한다.
8. <성경을 그릇되게 주장하는 자들>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능력’도 행하고, ‘표적과 기적’도 행하지만, 결국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고로 사라지게 되고, 그들 또한 ‘영원한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9.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시대 복음의 역사’가 더욱 표적을 보인다.
10. <말씀>을 굳건히 배워야, ‘그릇된 자들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긴다.
11. <온전한 말씀에 서지 않은 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지난날의 행함’도 흔들리고, ‘현실’도 흔들리게 되나니, 주인은 <뿌리 없는 나무>를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베어 버린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온전히 아는 자만>이 ‘이 시대 역사’를 제대로 펴게 된다. <삼위>를 모르고, <주>를 모르면, 구시대 주권을 아는 대로 행하므로 ‘새 시대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
13.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것>을 보시고, <온전한 것>이 오도록 하시나니, 각자 <진리>를 찾음으로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14. <주와 같이 행하지 않은 자들>은 ‘생명의 역사’에 속했다고 할 수 없나니, 지금도 그러하다. (추가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우리를 부모로부터 이 지상에 낳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새 시대 섭리사에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2.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고, 사랑하게 되었으니,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3. 지난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탄>을 멸해 주시고, <거짓으로 악평하고, 막고,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펴며 사랑으로 휴거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4.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알고 깨닫고 살게 해 주시고, <축복>을 주어 영육이 강건케 해 주심에 삼위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된다. 5. <이단종교>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무지한 기성>에서 나와 새 역사를 만나게 해 주시고, <시대 신부>가 되어 ‘천 년 역사’를 살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6.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세상은 허무한 인생,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 ‘6000

년 간 기다렸던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며 사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깨닫고 특별히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7. 저마다 <지난날보다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지> 깨닫고, <지난날보다 얼마나 더 받고 누리며 사는지> 깨닫고, 삼위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 8. <사울 왕>은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제 맘대로 살다가 '육신도 영'도 멸망 받았다. 9. <헤롯 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결국 해충이 몸을 파먹어서 '육'도 멸망 받고, '영'도 멸망 받았다. 10. <골리앗 대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야유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린 다윗>에게 돌을 맞아 '육'도 멸해지고, '영'도 멸망 받았다. 11.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께 사랑으로 영광 돌리며 그 뜻을 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갇은 핍박을 한 자들>은 결국 '육'도 멸망 받고, '영'도 심판을 받고 흑암의 세계로 가서 지금까지 갇은 고통을 받는다. <신약의 동시성적 역사를 펴는 이 시대>도 그러하다. 12. 세상인생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 일생 동안, 영 영원히' 축복을 받지 못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이 매일 만물 축복과 삶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중심으로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14.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그와 함께 영광 돌리는 자들>은 '그 육도 영'도 축복 받는다.

15. 시대 신부들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리자.

16. 신부들아, <지난날 사연>을 생각하여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려라.

17. <이 시대의 부름>을 받고 <사랑 휴거>를 이뤘으니, 영광을 돌리자.

18. <시대 신부들>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예술'을 주었다.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이 시대 성약역사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다.

2. <영광 주간>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에 대해 제대로 깨닫고, 1년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3. 찾아보면, <영광을 돌릴 것>이 너무도 많다. 지난날 섭리사가 달동네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4. 지금은 지난날보다 백배, 천배 축복을 받고 산다. 이를 깨닫고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자.

5.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 너무도 감사한 기쁨의 삶이다. 이에 감사와 고마움의 영광을 돌리자. (추가 잠언) 1. 사람은 나이가 들면 <형(形)>이 변하기 시작한다. '이목구비의 형(形)'이 변하고, '몸의 형(形)'이 변한다. 2. <자기 정신, 생각, 사고의 형(形)>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3. <자기 영혼의 형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구원'을 이뤄놓아야 된다. 4. <휴거>되어 황금천국에 갔어도 '영혼의 형(形)'이 변하면 내려온다. 5. <육신>이 죄를 지으면, '자기 영'이 육신을 때리고, 치고, 방해하며 괴로움을 준다. <타인의 영>으로 인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으로 인해 '자기 육신'이 심판받는다.

6. <육신>은 '영혼을 위한 공장'이다. 육신의 행위대로 '영혼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7. 어떤 사람은 <육신>은 예쁜데 '혼과 영의 형체'는 그렇지 못하다. 자기 <육신의 행위>가 '영의 형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로 <영>으로는 속일 수가 없다.

8. 영계에서도 <사탄>이 '천사의 형(形)'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의심스러운 것이 보이고 드러나게 된다. 만들어 보이려고 해도 100%는 못 만들기 때문이다.

9. 사람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인생의 길>을 찾는다. 계속해서 '더 좋은 길'을 찾으려 다닌다. 어떤 영은 길을 찾

다가 인생의 해가 저서 정착하려는데, 그 자리가 '음부 지역'이었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10. 지구상의 누구든지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찾고 부르면 대답하시고, 역사하신다.

11.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관'으로 인해 놓치고, '이성'으로 인해 놓친다. 잘 하다가도 놓치면, 마치 바위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끝난 인생 같은 신세가 된다.

12. <육신>은 기도하지 않고 태만하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누구든지 운전을 하다가 운전대를 놓으면, 반듯하게 가도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과 같다.

13. <신앙>이 넘어지고 다치기 전에 자꾸 자기를 살펴야 된다. <주>가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도 계속 붙잡고 있지는 못 하신다. 부모도 아기를 계속 붙잡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이 '천륜의 법칙'이다.

14. <남>이 붙잡아 쥐서는 끝까지 못 간다. 붙잡을 때만 서고, 놓으면 또 넘어진다. <최고 사랑하는 자>라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 고로 <본인>이 '본인'을 다스려야 된다.

15. 성경에 <홀로 있는 자>가 가장 불행하다고 했다. 왜?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16.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흔들리며 본정신에서 왔다 갔다 한다. 많은 기도를 해줘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다.

17. <주>를 시인했어도 <본인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나가떨어진다. <자기가 시인한 자>가 '주'가 아니라서 신앙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매달리고 있다가 힘이 없어서 놓게 되는 것이다.

18. <주>와 더불어 일체 되면, '신앙'이 죽지 않는다.

19. <신앙을 하면서 불안함과 초조함이 많은 이유>는 대개 '주와 일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 신약 때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따랐다가 신앙을 저버렸다. <사도바울>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려고 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서 등을 돌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또는 내가 너희를 정당히 대접 하므로 나의 원수가 되었느냐?" 했다.

21. <삼위 일체>와 <주>께 묶여 있으면, 안 넘어진다.

22. <주>를 빼놓고는 어느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장담하지 말아라.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철>은 오랜 기간 동안 '담금질'을 잘해야 단련된다. 뜨거운 햇볕에 놓았다가 차가운 비바람도 맞히고, 오랫동안 산전풍전을 겪게 하며 30~50년 정도 '연단 기간, 단련 기간'을 거쳐야 좋은 철이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어느 정도 '연륜'이 있어야 단련되는데, 인생은 10년이면 충분히 겪고 단련된다.

2. <신앙생활>을 하며 겪을 것을 겪으면, 단련되고 연륜도 생긴다. <말씀>으로 '자기'를 잘 만들기만 하면 멋지고 유능하게 성장한다.

3. <권투 선수>도 오랫동안 많이 맞아봐야 상대를 한 번에 쓰러뜨리는 유능한 선수가 되듯이, <사람>도 오랫동안 단련되어야 연륜이 생기고, 유능해진다.

4.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우스 땅에 <웁>이 있는 것을 아느냐? 그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셨다. 이에 사탄은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 웁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했다. 사탄이 힐문하자 하나님은 ‘웁의 생명 외에 모든 것’을 사탄에게 맡기시고, 웁을 시험하게 하셨다. <웁>은 왜 환난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고통을 받고, 연단과 단련을 받으며 결국 시험을 이겼다.

5. <선생>도 모든 시험의 단계를 다 거쳤다.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쳐도 하나님을 좋아하며 사랑하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여지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 사탄이 더 이상 조건을 붙일 수가 없었다.

6. <사탄>이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실로 잘해야 된다.

7. 임시방편으로 살지 말고,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여라.

8. <인생>은 ‘한 막’다. ‘두 막’은 없다. 고로 한 번에 잘해야 된다.

9. <인생의 한 막>은 ‘약 40년’이다. 그 이전은 ‘준비하는 기간’이고, 나머지는 ‘매듭짓는 기간’이다.

10. 선생부터도 <인생의 한 막>을 잘 뛰어서 승리했다.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는 기간>인 ‘20년 동안’은 세상에 못 나가게 하시며 ‘배우고, 갈고 닦는 일’을 하게 하시고, ‘군대’도 다녀오게 하셨다. 선생만은 군대를 안 가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은 다 해야 된다.”하셨다. 드디어 33세에 할 일을 다 마치고,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 받아 34세부터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8년부터 <40년 동안 한 막>을 뛰고 역사를 완성했다. 이제 나머지는 <그 동안의 역사를 매듭짓는 기간>이다.

11. <종교>도 한 번에 잘 선택해야 된다. 한 번 <종교>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 그 종교에서 ‘인생의 한 막’을 다 보내기 때문이다.

12. <비행기>를 한 번 탔으면, 중간에 못 내리고 ‘다음 정거장’까지는 가야 하듯이, <종교>도 한 번 선택했으면 ‘한 막’은 뛰어야 된다. <비행기>를 타고 애인을 만나러 가다가 공중 반대편에서 <애인이 탄 비행기>를 만났어도 뻘히 쳐다보면서 엇갈린 길을 가야 된다.

13. <종교를 갖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 한 번 결혼하면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기가 어렵듯이, 한 번 종교를 선택하면 바꾸기가 어렵다. 자기가 살던 곳을 버리고 오자니 양심에 꺼리고, 자기가 해 놓은 것이 있으니 눈에 밝힌다. 고로 성경에 “아이 밴 자는 화가 있다.”라고 한 것이다.

14.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비행기를 탄 격’과 같아서 바로 돌아올 수 없고, ‘결혼생활을 시작한 격’과 같아서 되돌리기 어렵다. 고로 한 번 선택할 때, 제대로 선택해야 된다.

15.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착오가 생겼을 때 금방 혼돈되어, 왔다 갔다 하며 시험에 든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기’가 선택했으면, 슬럼프가 왔을 때 왔다 갔다 한다. 고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과 같이 선택>해야 된다.

16. 아예 처음부터 <성령>과 같이 ‘옳은 길’을 선택하면, 세상이 뒤집어져도 ‘갈 길’을 간다.

17. <신앙>이 아예 처음부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환난 때 ‘확인’도 필요 없이 간다.

18. <일반 종교>에서는 ‘환난’을 못 이긴다. ‘메시아’가 없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19. <주>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모략과 공격’을 받아도 이기고 간다.

20. 이제 <남은 한 때>를 뛰고 주가 땅에서 떠나면, 성령도 땅에서 철수하신다. 자기를 완전히 만들어서 주와 같이 이기고 또 이기며 <마지막 한 때>를 날아야 된다!

<2020년 1월 19일 주일 잠언>

1. <복>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다.

2. <복>에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다.

3. <복을 받는 절대법칙>은 ‘복을 받는 조건을 행하는 것’이다.

4. <어떤 것>을 얻으려면 ‘그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듯이,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받고 싶은 복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

5.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풀어보면, 육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다. 곧 <자기 부족, 신앙의 부족을 느끼고 깨닫고 채우는 자>를 말한다. 그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의 것이 된다.

6. <유대 종교인들>은 “나는 신앙의 부족이 없다. 잘하고 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며 만족하고 살았다. 예수님을 보았어도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자기 외에는 나은 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 하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좇고 따르며 배웠다.

7. 둘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애간장을 태우며 주님께 애가 닳도록 매달리고, 말도 하고, 간구도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8. 셋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온유하다는 말은 ‘겸손하다’, ‘착하다’, ‘선하다’, ‘까다롭지 않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악하지 않다’, ‘교만하지 않다’, ‘강하고 무뚝뚝하지 않다’는 말이다. 또 ‘성격이 옥토 밭과 같고, 실크 옷과 같고, 잘 닦여진 수석과 같다’는 말이다.

9. <온유한 자>는 ‘성격도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모두 온유한 자’를 말한다.

10. <성격>과 <마음>은 타고 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들고 닦기도 해야 된다.

11. <같은 태속에서 나온 자녀들>이라도 ‘성격’과 ‘마음’이 다 다르고, 만들고 닦는 대로 또 달라진다. <야곱의 열두 자녀들>도 성격이 다 달랐다. 그 중에 요셉은 신앙의 충성자로서, 만들고 닦은 대로 더 달랐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살려면, ‘성격’과 ‘마음’과 ‘행실’을 닦아야 된다.

13.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를 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으로 닦인 대로 ‘시대의 차원’이 달랐다.

14. <성약시대>는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히 닦여진 시대’다.

15. <마음이 온유한 자들>이 ‘이 시대의 복’을 받는다. <시대의 복을 받고 사는 자들> 중에서도 ‘마음이 온유한 대로’ 더 복을 받고 산다.

16.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해서 ‘삭막한 신광야 땅’을 받고 살았다. 그러나 그 2세들은

마음이 온유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17. 시대마다 민족도 섭리사도 개인도 <마음>이 닦아진 대로 ‘시대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마음>이 온유한 대로 구약시대 때는 ‘구약의 땅’, 신약시대 때는 ‘신약의 땅’, 성약시대 때는 ‘성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18. <받은 땅>만 보아도 그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 이 시대 신부들은 그 마음대로 ‘온유한 월명동 땅’을 천 년 기업으로 받았다.

19. 넷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게 되는 복’이 있다고 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를 행하기 위해 애쓰며 사는 자들’이다. <구시대인들>은 항상 그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라고 만족하며 배불러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의에 주린 자들로서 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시대의 복’을 받았다.

20. 다섯째,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자’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돕고 사랑하는 자는 그도 ‘공홀히 여김’을 받는다. <공홀함이 없는 자>는 ‘인정 없이 말하고 행하는 자’다. 그들은 하나님께도 성령님께도 주께도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21. 어느 시대든지 <주의 심정으로 행하지 못한 자들>은 하늘 앞에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악평자들>도 그러했고, <형제의 마음과 행실을 제대로 모르고 대한 자들>도 그러했다.

22. 여섯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고 살게 된다. <핵심>

23. 일곱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다고 했다. 신약시대 때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평을 깨트림으로 ‘자녀급 주관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구약 4000년 동안 기다린 꿈’을 이루지 못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 됐다. 반면, <화평으로 예수님을 좇은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2000년 역사를 펴 나갔다. 이 시대도 <화평을 깨트린 구시대인들>은 이 시대 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00년 동안 기다린 꿈과 이상’을 깨트림으로 안타까운 운명들이 됐다.

24. 해가 떠서 질 때까지 모두 <화평으로 해결>하고 <화평으로 결정>해야 된다.

25. <화평으로 주를 좇은 자들>은 모두 ‘시대 신부’가 되어 신약 2000년의 꿈을 이루고, 성약 1000년 역사를 펴는 기회를 얻었다.

26. <머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요, ‘주’다. 그래야 <화목함>으로 ‘진짜 신부’가 되어 ‘더 차원 높은 휴거’를 이루게 된다.

27.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상속받는 복’을 받는다고 했다. <주를 위해 핍박과 각종 고통을 겪은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주시는 축복과 상’이 크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주시는 8가지 복을 받은 자>는 더욱 차원을 높여 살아야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

29.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모두 장단점이 있다. 저마다 고칠 것을 고치고 서로 화평으로 행해야 된다.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인생 백년>은 ‘육신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충분한 기간’이자 ‘하나님께 찾아가는 기회를 준 기간’이다. 이 기회를 잃으면 <육신>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사망으로 간다.

2. <영>이 지옥에 가서 고통 받아도 ‘자기 육신’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과 ‘제2의 육신인 혼’이 일체 되어 가기 때문에 <육신>이 지옥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다.
3.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마음>과 <정신>이 죽으면 식물인간이 되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산다. 사람은 <마음>과 <심령>에 따라 느끼고 살기 때문이다.
4. <마음>이 ‘제2의 육신’이다.
5. <마음>이 ‘인간의 핵심’이다. 고로 하나님은 <인간의 육과 혼과 영>을 만드실 때 ‘마음과 생각’을 넣어 창조하셨다.
6. <육과 혼>은 ‘한 지체’와 같다. 그러므로 육신 일생이 끝났어도 혼이 육신같이 느끼는 대로 다 받고 산다.
7. 하나님은 꿈쩍 못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지구상에 많은 영웅열사들이 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사망권으로 처리된 바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살면 자동적으로 생명권으로 가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8. 세계적인 지도자들도 결국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 받고, 한계를 맞다가 인생을 끝낸다.
9. 이 시대는 <최고로 인생의 한계를 맞은 시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허무와 고통에 시달리고,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며 곤고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10.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만이 ‘영원한 길’을 가르쳐 주고, ‘영원한 세계’에 가서 제2의 삶을 살게 해 주며, ‘그 육신’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해 준다.
11. 사람들은 ‘왜 먹는가?’, ‘왜 사는가?’, ‘살아서 무엇 하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이를 고민한다. 그러면서 어느 때는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한다. 왜 그럴까? - <자기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다.
12. <인간>은 ‘확실하게 알아야’ 강도가 높아진다. 모르는 상태에서 ‘강한 마음’을 가져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13.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강도가 강한 자’다. 곧, ‘강하고 흔들림 없는 정신과 사고를 가진 자’다.
14. <온전한 것>을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
15. 선생이 노방 전도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메시아가 필요치 않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어려움을 도와줄 자’가 있어야 하고, ‘앞날을 알고 도울 자’가 있어야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꺼내 줄 자’가 있어야 하고, ‘구원을 시켜 줄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6.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신의 경지의 사고와 사상’으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17.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얼마가지 않아 ‘텅 빈 지구’가 되어 버린다.
18.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어떻게 살리셨는지 모르고 산다. 하나님이 미리 도와서 ‘죽는 길’을 피하게 하신 것을 모른다.

<2020년 1월 2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행복>은 수백 가지인데 크게 나누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다. <영적인 복>은 ‘육’도 받고, ‘영’도 받는다.

‘영원한 운명’까지 좌우한다.

2. <육적인 복>이라도 ‘하나님께 속한 복’은 영의 형체를 변화시키기까지 한다.

3. 하나님의 주관을 떠난 <육에만 속한 복>은 ‘육신 세계’에서만 받고 누리고 끝난다.

4. <어디에 속해 살면서 복을 받느냐>에 따라 ‘그 복’이 크고, 작다.

5. <육>에 속해 누리면, 누리도 그 기간이 너무도 짧다.

6. <영>에 속해 누리면, ‘육신 세계’에서도 받고 ‘영의 세계’에서도 또 받으니 그 기간이 길고 영원하다.

7. <화목의 복>도 그러하다. <주 안의 화목>은 ‘육신’이 육의 세계에서도 누리고, ‘영’이 영의 세계에서도 누린다. 그러므로 크고도 큰 화목이다.

8. <주와 화목>이다. <삼위와 화목>이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화목>은 보다 쉽다. 전능하신 존재자와는 화목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신 주와의 화목>은 보다 어렵다. 또 <주와의 화목>은 보다 쉽고, <형제와의 화목>은 보다 어렵다. 이는 형제가 ‘보편적 대상’이기 때문이다.

10. <주>는 ‘주체 입장’이라 모두 화목하기가 쉬우나, <형제들끼리>는 서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위하고 섬겨 주고 화목하기가 어렵다.

11. 항상 <손아랫사람>을 화목으로, 존경으로 대하기가 어렵다.

12. <유대 종교인들>도 하나님께는 화목하게 대하였으나, 형제 같은 예수님께는 막 대하고, 불화하게 대하고, 미움과 무시로 대하다가 그 행함대로 메시아로 인한 심판을 받았다.

13. 하나님과 성령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듯이, <형제나 손아랫사람을 화목하게 대하는 삶>은 ‘아주 크고 큰 신앙의 삶’이다. 이를 행하는 자는 ‘화목의 복’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기의 복’도 계절 같이 끊이지 않고 받게 된다.

14. <자기가 말한 것>이 자기에게 ‘화’가 될 수 있나니, 할 말과 안 할 말을 매일 매시간 판단하고 하여라.

15. <말>을 정말로 조심하라. <말>을 잘하면, 항상 ‘유익’이 된다.

16. <말하는 대상>에 따라 ‘그에 속한 말’을 해라.

17. 어떤 자는 말하자마자 <말하면 안 될 자>에게 바쁘게 가서 못 참고 말한다. 고로 ‘말로 인한 복’을 못 받게 된다.

18. 주께 말을 들어도 <자기에게 속한 말>은 자기만 알고 행해야 ‘주의 계획한 뜻’을 이룬다.

19.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혀 조심, 말조심>하고, 절대 <할 말>만 해야 된다.

20. <말을 더 보태서 하는 자>도 ‘말의 죄’를 지은 것이 된다.

21. <주께 형제에게 말을 듣고 자기 주관을 더해서 말하는 자>도 ‘말의 죄’를 지은 것이 된다.

22. <악한 자들>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더해서 하고, ‘상대의 말’에 자기 주관을 넣어서 해 버린다. <악한 자

와 마귀의 주관>을 받으면 그러하게 된다.

23. <말을 잘하기>다. <은혜로운 말의 축복>이다.

24. <말을 잘하는 축복>이 그리도 크다.

25.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축복>이 크다.

26.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전하면, ‘말씀을 전한 자’도 ‘들은 자’도 모두 스스로 행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27. <가르치는 자들>은 제대로 온전히 가르쳐 줘야 된다.

28. <말만 하고 행치 않은 자>를 영계에서 보면, ‘죽은 자의 삶’을 산다.

29. <말의 온전함>이다.

30. <말 온전히 하기>, <제대로 행하기>다.

31. <삼위와 주>와 일체 돼야 ‘말’을 잘하게 된다.

32. <말>을 잘하면, ‘글’도 잘 쓴다.

33. <말>을 잘못하면, ‘심령’을 거스르게 된다.

34. <말>에 따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다.

35. <말을 잘하는 자>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와 같다.

36. <하나님과 성령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 주어야 한다.

37. <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해 주면, ‘능력’이 나가고 ‘성령의 불’이 나간다.

38. <인물>보다 ‘말’이다. <말>을 잘하면 ‘사랑’이 가게 된다.

39. 예뻐도 <말>을 정 떨어지게 하면, 별로다.

40. <마음에 드는 진짜 신부>가 되려면, ‘말’을 예쁘게 하여라.

<2020년 1월 26일 주일 잠언>

1. <귀한 것>을 받았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

2. <황금 천국>에 가서도 누리지 못하면, 마음과 생각과 삶은 ‘일반 천국에 사는 것’과 같다.

3.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4. 가령, <아주 좋은 집>에 살아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면, ‘보람’도 없고, ‘낙’도 없고, ‘일반 집에서 기뻐하며 사는 자’만도 못 하다.

5. <부자>가 되어 살아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기쁨으로 살지 못한다면, <보통으로 살면서 기뻐하고 좋아하며 사는 자>만도 못 하다.
6. <자기가 원했던 자>를 만나서 같이 살아도 천국같이 살지 못하면, 실상은 <보통사람을 만나서 기뻐하며 사는 자>만도 못 하다.
7. <육에 속한 보람이나 기쁨>은 ‘육’에서 누리고 끝난다.
8. 육신이 주 안에 살면서 <영적으로 낙>을 누리야, ‘땅’에서도 영육이 기쁘고 보람 있게 많이 누리고 살고, ‘영의 형체도 천국 형’으로 변화되어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이 ‘영계’에 가서 영원히 보람되게 누리고 산다.
9. <처음 신앙>을 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니, ‘보람’도 없어지고 ‘가치’도 상실하게 된다.
10. <물건>도 <집>도 <환경>도 <사람>도 처음 얻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보람’도 적어지고 ‘기쁨’도 ‘사랑’도 보통이 된다.
11.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춧대’를 옮긴다고 했다. 실상은 자기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생각이 달리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12. <물건>도 처음에는 ‘보석을 얻은 듯’이 좋아하다가도 오래가면 점점 보통으로 생각하다가 ‘보통 값’으로 팔고 만다.
13. <신앙의 삶>도 그러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의 대상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대하며 살다가도, 오래가면 ‘가치’도 잃고, ‘사랑’도 식어서 보통으로 대하며 살아간다.
14. <은혜>와 <사랑>과 <감사 감격>에 충만하여 살지 않으면, 기쁨도 보람도 없이 ‘차원 낮은 삶’을 살게 된다.
15. <처음 사랑>도 <처음 가치>도 <처음 기쁨>도 잊지 말아라. 잊으면 ‘성장이 멈춘 삶’이 된다.
16. 기도하고 <가치>를 깨달아야 기뻐하며 즐겁게, 사랑으로 뜨겁게 10배, 100배 누리며 살게 된다. <중요>
17. <신앙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뺏기거나 멀리하는 이유>는 첫째, ‘사랑’이 식어서다. 둘째, ‘가치성’을 잃어서다. 셋째, ‘주로 인한 기쁨’을 잃어서다.
18. 처음에는 <신앙>이 최고라고 하며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다가도 각종으로 태만하여 ‘처음 사랑’을 잃고, ‘기쁨’과 ‘감사’와 ‘가치’를 잃고 점점 멀어져서 결국 <신앙>을 뺏기거나, 스스로 버리게 된다.
19. <처음 사랑을 잊는 이유>는 ‘신앙을 대하는 믿음’이 식어서다. 또 태만하고, 기도를 안 하고, 감사 감격하지 않고,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각종 이유 때문이다.
20. <처음 사랑을 잊는 각종 이유>가 많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rang이시고, 동일하게 더욱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
21. 사람의 심리를 보면, <처음 사랑>을 얻거나 사귀기 시작할 때는 마음이 불타서 좋아하고 미쳐서 행한다. 그러다 점점 그 마음을 잃게 된다.
22.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을 받고, 결심을 했다가도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를 잃고, 결심이 식는다. <자기 마음과 생각>이 식었기 때문이고, <행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3. <귀한 물건>을 사더라도 시간이 오래 갈수록 ‘처음과 같은 가치’를 잊고, ‘사랑함’도 ‘좋아함’도 ‘기뻐함’도 잊은 채로 대하여 살게 된다.
24. <시간이 갈수록 처음 가치와 처음 사랑을 잊는 마음과 심리>는 누구나 동일하다. 결국 그러다 멀어지게 되고, 선을 넘어가서 뺏기고 잃게 된다.
25. <정신>을 차려야 ‘정상’이 된다.
26. <가치>를 잊으면 ‘같은 차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된다.
27.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왕이 되고나서는 마음도 행실도 변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가치’를 잃고 대하게 됐다. 그러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됐다.
28. <룻의 아내>도 처음에는 잘 피해가다가 ‘천사의 말의 가치’를 잊고 뒤돌아봄으로 심판 받았다.
29. <열 처녀 중 다섯 명>은 처음에는 신랑을 열렬하게 기다렸다가, 나중에는 ‘가치’를 잊고, 졸고 자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30. 하나님은 <처음에나 나중이나 감사 감격하고 좋아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맡겨서 40년 동안 다스리며 기뻐하며 살게 하셨다.
31. 예수님 때도 <처음 사랑을 뺏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뺏기게 됐다. <다른 제자들>은 처음 사랑을 끝까지 하여 영계에 가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같이 살고 있다.
32. 성경을 보면,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과 처음 가치를 잊은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뺏기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뺏겼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와 약속한 것들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지키고, 갈수록 더 사랑하며 가치를 알고 산 자들>은 ‘축복’도 ‘사랑’도 더 받고, 더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았다. 이스라엘 민족도, 구약의 유대종교인들도, 신약의 기독교인들도, 각 개인들도 그러했다.
33. <이 시대 주를 만난 자들>도 그러하다. 더 가치를 알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살수록 더 차원 높여 살게 되고, 더 기뻐하며 살게 되고, 더 축복을 받아 얻고 살게 되고, 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된다.
34. <작은 것>을 가지고 따지다가 ‘가치’를 잃고, ‘주님’을 멀리하다가 뺏기고 사는 자들이 많다. 이를 보고 성령이 주를 통해 밝히 말씀하신다. - <메시아>를 제대로 보고 대하기다. -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그 가치와 사랑을 알고 믿고 대하여 살기다.
35. <처음 가치와 사랑을 잊은 자>는 ‘주’를 점점 멀리 대하여 살게 되고, 후에는 ‘주’를 뺏기고 금식하게 된다. <땅>에서도 ‘영의 양식’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고 가난하게 살게 되고, <황금 천국>에서도 ‘좋은 곳’에 못 간다.
36.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갈수록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역사하여 대해 주시니, <우리>도 더 해야 된다.
37. <하나님의 축복>은 끝이 없다. 매일 더 주신다. ‘그 가치를 알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38. 지난날을 생각하며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처음 사랑을 잊고 사는 자>는 ‘이상적인 차원의 삶은 못 살고 있는 자’다.
39. <처음 사랑을 잊은 자>에게는 ‘지상의 축복’도 ‘천상천국의 축복’도 더 안 주신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뛰고 달리

는 자>만 더 얻고 산다.

40. <사람에 관한 것>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에 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도 그러하다. 보물이나 환경이나 집이나 돌과 나무와 물도 <처음 가치>를 잃으면, 사랑치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게 되고, 점점 멀어지다가 가치를 잃고 뺏기게 되고, 팔아버리게 된다.

41. <처음 가치와 사랑과 감사>를 잃으면, ‘축복의 운명’이 바뀐다.

42.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매일 감사 감격하고 사랑하며 가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

43.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더 알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주신 자>도 사랑하고 기뻐해야 ‘받은 것’을 안 뺏기게 된다.

44.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도 ‘기쁘게 써야’ 더 차원 높여 사랑하며 가치 있게 영광으로 쓰게 된다.

45. <하나님이 주신 것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써야 된다.

46. <귀한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팔아버리게 된다.

47.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 주신다. 그 후에는 본인이 더 쓰면서 깨닫고, 알고, 감사하며 써야 된다.

48. <가치를 모르는 자>는 ‘귀한 것’을 얻어도 뺏기고, ‘귀한 보물’을 얻지도 못한다. <가치를 아는 자>만 ‘귀한 것’을 알게 되고, 얻고, 기뻐하며 매일 잔치한다. 그 기쁨은 ‘마음과 생각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얻은 자 외에 다른 자는 모른다.

49.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주의 가치>를 모를 때마다 “염려 말아라.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니라. 너희가 아직도 모르느냐.”하며 깨우쳐 주셨다. 이 시대 주도 그러하다.

50. <대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며 대해야 된다. <주체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이미 늘 극적인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이 말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얻을 것’을 얻고, ‘주’를 뺏기지 않는다.

51. <주>를 뺏기면,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괴롭게 살아야 된다. 누릴 것을 못 누리고 홀로 과부가 되어 살아야 된다.

52. <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주’를 뺏기지 않고, 매일 ‘기쁨과 사랑의 잔치’를 하고, 차원 높이며 살게 된다.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스스로 서는 자>가 ‘큰 자’다.

2.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뛰고 달려야 된다.

3. <큰 돌>이 ‘앞에 있는 돌’에 의지하면, 앞에 있는 돌은 ‘3배 이상의 중량’을 견뎌야 하니 점점 기운다.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지하면, 상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게 된다. 고로 <자기>가 ‘자기’를 의지해서 서야 된다.

4. 선생은 15세 때부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았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깨달은 것이 맞다!”하고 말씀에 확실하게 섰다. 스스로 깨닫고 서니,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5. 지금은 <자기가 자기를 편하게 하고 사는 시대>다. 과거에는 ‘부모의 덕’을 보고, ‘자식의 덕’을 보고 살았지만, 요즘은 자기 신세를 좋게 하며 ‘자기 덕’을 보고 살고 싶어 한다.
6. <자기>가 ‘자기’를 잘 챙겨야 된다.
7. 수많은 자들이 <주>를 위하여 종을 올린다고 하나, 주를 위해서만 하다 보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된다. 고로 먼저는 <너 자신>을 위해서 종을 올려라.
8. <주를 위해 올리는 종>은 ‘진실한 한 번’이면 되니, 자기를 위하여 종을 올림이 합당하다.
9. 주께 <자기의 큰 꿈>을 이뤄서 와도 오히려 <주>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어 준다.
10. <부모>는 자식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 준다고 해도, ‘자식이 잘 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좋아한다. 그것을 보면 지난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주>도 ‘따르는 자들’을 보고 그러하다.
11. <자기에게 해당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주’를 위해 쓰며 살아라.
12. <남이 누리게 해 주는 영광>은 ‘한계’가 있다.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이상’을 이뤄야 왕 같은 삶을 산다. 그러려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엄청난데, 그 일들을 다 하며 살아야 된다.
13. <남>이 받들어 주고, 평안하게 해 준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할 일’을 하며 열심히 뛰고 달릴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편히 영광 받고 살 수 있다.
14.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을 다 맡길만한 사람>은 없다. 메시아 앞에는 신앙으로 맡기지만, 그렇다고 <자기 인생의 삶>을 다 맡겨버리면 ‘삶의 낙’을 잃어버린다. ‘일하는 낙’, ‘움직이는 낙’을 잃어버린다.
15. <메시아 앞>에는 ‘신앙’으로 맡기고, <자기 인생의 삶>은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인생의 낙’을 누린다.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처음 사랑>을 잊으면, 모든 면에서 ‘성장’을 못하고 멈춰버린다.
2. <첫사랑>을 잊으면, ‘사랑의 운명’이 돌아가서 다른 사람과 사랑의 운명이 되고 만다.
3. <첫사랑>을 잊으면, 후에 책망을 받고 돌아와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4. <첫사랑>을 기준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5. <사랑>을 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육의 세상에서도, 영의 세상에서도 ‘사랑의 역사’를 안 하신다.
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세상’과 ‘사랑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황금천국’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황금천국’도 못 가고, ‘삼위와 주의 신부’도 되지 못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사랑>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니라.
8.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처음 사랑>이 깨지면, 남남이 된다. ‘자녀의 자격’도 안 되고, ‘종의 자격’도 안 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과 일체>다. ‘그와 일체된 말씀을 절대 중심한 사랑’이다.

10.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게 된다.

11. <육적 사랑>은 만나서 이루지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영적 사랑>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이룬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신비한 황금천국에 속한 온전한 사랑>을 밤낮으로 이루어져든 ‘육신’이 절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마음’으로, ‘혼’으로, ‘영’으로 사랑해라.

12.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듯이 <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말씀을 행하며 사랑하여라.

13. <마음과 생각으로 혼과 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랑>은 ‘육신에게만 유익’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의 사랑을 이루지 못함으로 그 혼과 영에게는 ‘사랑의 변화’가 없다.

14. <주를 통한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15. <하나님과의 사랑>은 ‘나이 제한 없이’ 이루어진다.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의 사랑>이라 그러하다.

1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가 보내신 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것을 중심한 사랑’을 하면, 결국 그 행위대로 ‘우상 사랑의 죄’, ‘이성 사랑의 죄’, ‘각종 보물 사랑의 죄’를 지은 대가를 받게 된다.

<2020년 2월 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개인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처음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변하든지 식으면, ‘책망’을 받고 ‘사랑의 쫓대’가 옮겨진다.

2.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은 ‘아담과 하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서 심판을 받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3.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태함을 받기 전 상태로 나가 살게 됐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의 처음 사랑>을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신부의 사명’도 뺏기고, ‘신랑’도 뺏기게 된다. <땅>에서 뺏기니,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을 뺏기게 되고, ‘황금천국’도 뺏기게 된다.

5. <처음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제대로 안 해서 뺏기면, ‘사랑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뺏기게 되고, ‘그 보낸 자 메시아’도 뺏기게 되고, ‘그를 보낸 장소 에덴동산’도 뺏기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6. <참사랑>은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며 살게 한다. 살수록 더 ‘사랑의 세계’를 보여 주며 행하게 한다.

7. 모두 <처음 사랑>을 기점으로 하여 계산한다.

8. <처음 사랑>만 못하면, ‘사랑의 흑자가 없는 신앙의 삶’이다.

9. <사랑>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뺏긴다.

10. <사랑>이 깨지면, ‘남남’이다.

11. <처음 사랑>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라.

12. <사랑>을 뜨겁게 해야 또 주신다. 하나님 입장에서 따지지도 않으시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주신다.
13. <처음 사랑>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을 맺은 것’이다.
14. <처음 사랑이 식은 자, 처음 사랑을 잊은 자>는 ‘계약한 땅 문서’를 남에게 주어 버린 격이다.
15. <처음 사랑>을 잃으면, ‘마음 일체’가 안 되니 통하지 않고 성격이 안 맞는다.
16. <처음 사랑>을 잊으면, ‘사랑에 죽은 자’가 된다. 그러므로 다시 <처음 사랑>을 하며 살아야 같이 살게 된다.
17. <처음 사랑을 잊은 자>는 ‘맛이 간 음식’과 같아서 상한 음식을 못 먹듯 같이 못 산다.
18. <처음 사랑을 잊은 자>는 사랑을 해도 ‘모르는 자’다. 안 통하니 같이 못 산다.
19. <하늘 사랑을 잊고 육적으로 사는 자>는 ‘1조 분의 일 만큼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그나마 육신이 죽으면 끝나게 된다.
20. <처음 사랑>을 잃으면, 자주 보든지 오랜 만에 보든지 하나님도 주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한다.
21. <처음 사랑>뿐 아니라 <처음 말씀>을 듣고 잊으면, ‘책망’을 받고 ‘섭리의 촛대’가 옮겨져서 근본된 토지를 갈며 보다 사망 땅, 옛 지역으로 가게 된다.
22.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잊게 된다.
23. <생명의 시대 말씀>은 귀하게 보고, 전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24. <첫 사랑, 첫 생명의 말씀을 잊게 되는 원인>은 환난과 핍박 때문이고, 혹은 본인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2일 주일 잠언>

1.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그 시대에 존재하던 천지만물들’이 없어졌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2. 누가복음 21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설교하셨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징조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다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것이다. 미혹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37년 후에, 주후 70년에 <유대인과 로마와의 전쟁>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
3. 천지가 없어지고,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
4. 이 시대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천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다 이루어졌다. ‘성경에 예언된 세상의 징조에 대한 말씀’과 ‘지진과 태풍과 전쟁 혹은 전염병과 심판에 관한 말씀들’도 다 이루어졌다.
5. 누가복음 21장 12~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때>에 대해 예언하셨다. 예수님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스스로 조심하고 끝까지 견디라. 그때마다 성령이 지혜를 주리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라.” 하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자기 주관대로 한 자들>은 환난 때 떨어져 나갔다.

6. 이 시대에도 주가 <십자가 지는 때>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해 주며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다. 주는 “부모와 형제들 혹은 섭리사 형제들끼리도 유혹하고 핍박하고 각종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악평자들로 인하여 각종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성령이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그대로 하여라.”하고 말씀했다. <주의 말씀대로 한 자들>은 예언대로 환난을 받았어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았지만, <주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은 예수님 때 가룟 유다같이 주를 배신하고 사망 길로 갔다. 시대 사명자도, 증거자들도, 따르는 자들도 ‘시대 환난의 고통’을 받았어도 성령이 지혜를 주어 모두 이기게 하셨다. 천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아멘.

7. 누가복음 21장 33~36절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로 인해 그 날이 닢과 같이 임하게 된다.” 하셨다. 이 말씀대로 <스스로 극적으로 조심한 자들>은 이기고 승리했다. <신약 때>도 <이 시대>에도 천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8. <천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환경’과 ‘사람’이 변하여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보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해당되는 자’를 쫓아다니며 행한 대로 갚아 주듯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9.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산꼭대기’에 숨어 있어도, ‘바다 밑’에 숨어 있어도 다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신대로 행하셨다.

10.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사’를 나가 어디에 숨어있어도 모두 각종으로 그 행한 행위대로 받게 하시고, 자기 소원대로 안 되게 해 버리셨다.

11.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벗어나 딴 곳에 가서 <환경>이 변하였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를 통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 본문 말씀을 이 시대에 해당되게 더 깊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12.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각종으로 조심하고 살라는 말’이다.

13. <물건>을 살 때 속지 않게 스스로 조심해서 사라.

14. <그릇된 종교>에 빠져들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여라.

15. <그릇된 주장과 말>에 스스로 조심하여라.

16. <오직 주의 말씀>만 중심하여라.

17.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18. 누가 옆에서 말해 주거나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조심하여라.

19. 누가 매일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조심하라고 할 수 있느냐. <주>도 매일 매시간 같이 다니면서 “조심해라. 위험하다.” 할 수 없고, 물건을 살 때마다 같이 다니면서 “이것은 가짜다. 진짜다.” 할 수 없다. 고로 스스로 조심하여라.

20.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를 통해 하신 생명의 말씀>을 ‘목’에 걸고 어디를 가나 ‘생각’에서 잊지 않고 스스로 생명시 하며 행해야, 현재에도 미래에도 ‘환난과 해’를 피하고, 짐승이 덫에 걸려 죽듯이 ‘죽음의 덫’에 걸려 사망으로 가지 않는다. ◎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주>도 <관리자>도 쫓아다니면서 조

심하라고 말해 주지 못합니다. 생활이 다르니 쫓아다닐 수도 없고, 같이 다니다가는 ‘본인’도 ‘상대’도 감염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 <도시에서 이동이 많은 자들>은 <시골에서 이동이 적은 자들>보다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월명동>에 오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책임분담’을 다하며 지혜롭게 역사를 펴라고 전체에 공지해 줬습니다. <월명동>에서도 ‘각종 모임과 교육들’을 자제하고 최대한 축소해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교회나 자기 삶의 지역>에서 역사를 펴라고 했습니다. ◆ <섭리사 전체>가 ‘국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솔선수범하여 잘 대처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됐을 때>보다 <바이러스 잠복 기간인 지금>이 더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교단을 통해 자세하게 공문을 보내 주고 있으니, 공문을 참고해서 ‘자기 건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손을 자주 씻고,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 환난 때 잘하면, 더 이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를 펴게 됩니다. 이때 <올해의 할 일들>을 두고 더 연구하고, 구상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너무 의식하며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고, 피할 자를 피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기 바랍니다. ◆ 금주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루어집니다. 고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기간에 <성령과 주>와 함께 지혜 있게 행하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누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고 하라는 말’이다.
2.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는 ‘불의의 해’를 당하게 된다.
3. <자기 삶>은 자기가 스스로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4. 누가 <자기의 삶>을 매일, 매시간, 매분 쫓아다니면서 관리해 줄 수가 없다.
5.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고 겨울철에 얼어있는 논밭을 가는 자’같이 된다.
6. 스스로 <제 할 일>을 찾고 행해야 ‘삶’이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고,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된다.
7. 자기 외에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알고 가르쳐 줄 자도 없다.
8. <자기 삶의 할 일>은 자기가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
9. <인생>은 각자 살아가는 길이 다 달라서 결국 ‘혼자 살아가는 삶’이다. 고로 <삼위와 주를 중심>하여 ‘자기 스스로 이상적’으로 행하기다.
10. <스스로 걸을 줄 아는 자>는 ‘다 큰 자’다.
11. <스스로 행하기 위해 집중하여 사는 자>는 ‘그날그날의 얻을 것을 축복 받고, 희망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다.
12. <남이 해 주는 것만 행하는 자>는 남이 생각이 나지 않아 해 주지 않으면, 10년 20년이 가도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두고 기도로 성령과 주와 의논하며 그때그때 행하여라.
13. <스스로 행하는 자>는 ‘정신과 생각’이 살아있어야 된다.
14. <좋은 것과 나쁜 것>,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두고 기도하고 성령과 주께도 물어보고 분별하고 해야 된다.
15. 배우고, 알고, 스스로 주 안에서 행하여라.
16.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에도 희망이 이루어지고, 미래에도 ‘희망의 앞날’이 지속된다.

17.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행하되, ‘그 일을 아는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속지 않게 행하라.
18. <스스로 해버릇하는 자>는 보통사람보다 ‘3배 이상 할 일’을 하고, ‘보람’을 누리고 살게 된다.
19.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분별하고 행하며 사는 자>는 ‘자동 기계 같은 자’다.
20. <누가 시켜서 할 일을 하는 자>는 ‘수동 기계 같은 자’다.
21. <성령님이 주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자기가 알고 있으니, 항상 스스로 조심하면서 행해야 된다.
22. <자기 할 일>을 나 몰라라 하면 누가 하느냐.
23.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할 일’이 밀려서 살 수가 없게 된다.
24. <스스로 조심하는 자>는 신과 같이 ‘화’를 안 당하게 된다.
25. 극히 조심하면, <해를 주는 마귀>도 <해를 주는 사람>도 피하고 다스리게 된다.
26. 산 짐승이 ‘올무’를 조심하지 않으면, 얽혀서 죽게 된다.
27.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분별없이 먹으면, ‘병’에 걸리고 죽기까지 한다. ‘독이 있는 과일과 음식’을 분별하라.
28. <자기 건강>을 스스로 조심하라.
29. <운전>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
30. <병>에 걸리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스스로 조심하면 상관없다.
31. <스스로 조심하여 행하는 자>는 ‘성공률’이 아주 높다.
32. <스스로 조심하여 행하는 자>는 ‘자기 존재의 실력자’다.
33. <행하는 것>마다 조심해서 행하여라.
34. <목적인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다가는 그 일로 인해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도 난다.
35.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하는 자>는 ‘지능이 낮은 자’요, <두세 가지를 생각하며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고 조심하게 행하는 자>는 ‘아이큐 140이 넘는 자’다.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스스로 조심하여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항상 속지도 않고, 죽음도 피해 살고, 날마다 얻고, 억울한 일도 안 당하는 지혜로운 자’다.
2. 항상 스스로 <때>를 놓치지 말고 정신 차려 행해야 된다.
3. <스스로 조심하여 행하는 자>는 매일 성장하고, 얻고, 해를 받지 않는다.

4. <생활에 당한 일들>을 늘 신경 써서 자세히 보아야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5. 위험하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6. <예감>이나 <느낌>이 와서 하기 싫으면, 하면 안 된다.
7.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 하나님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행하신다. 다만, 사람들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합당하면 행하신다.
9. <스스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 성격의 소유자'다.
10.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안>에서 스스로 행해야 된다.
11. <자기 할 일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12. 매일 <해>가 뜨듯이, <지구>가 돌듯이, <계절>같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행하기'다.
13. <스스로 행해야 됨>은 '자기 외에 자기 일을 행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못 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행해야 된다.
14. <스스로 조심하여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경호원을 10명씩 거느리고 다니는 자'보다 더 해를 안 입는다.
15. 인생길을 가다보면 '자기 혼자 살 때'가 많으니,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극히 조심하면서 행해야 된다.
16. 스스로 <손발 조심>, <운전 조심>, <생각과 마음과 행실 조심>이다.
17.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18. <자기 주관>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
19. 항상 <성령과 주>를 부르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20. <조심>을 지켜 행하라. 물건을 살 때 속지 않는지 조심하고, 물건을 만들 때 조심하고, 말조심하고, 행하는 사사건건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 화가 닥친다.
21. <타인>이 '해'를 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생각'이 그릇되어 스스로 '화를 받는 길'로 가게 된다.
22. <성령과 주의 뜻>대로 살도록 항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23. 조심하고 행하면, <얻을 것>과 <바라는 것>을 얻게 된다.
24. <얻은 것>을 스스로 조심해서 관리하여라.

<2020년 2월 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정상적이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2. <천국>은 모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정상적으로 행하니, 영원토록 존재한다.
3. <세상의 각종 기계들>도 정상을 벗어나 고장 나면, 다시 고쳐야 정상이 되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도 정상을 벗어나면 더 이상 존재를 못하게 된다. 고쳐야, ‘정상적인 존재’를 하게 된다.
4. 세상에 <진짜>는 많지 않다.
5. <수석>도 ‘진짜 자연수석’은 10분의 1, 1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된다. 자연수석 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없어서 만들어 팔기에, ‘자기가 원하는 좋은 형상의 자연수석’은 보물같이 아주 적다.
6. <수석>이 상류에서 구를 때는 크고 형상이 분명하고 아름다워도 ‘수마’가 안 돼서 매끈하지 않으니 ‘값’이 적게 나간다. 큰 돌이 수십 억 년 동안 강에서 구르다가 수마되면, 형체가 닳아서 크기는 작아지지만 ‘수마’가 잘 돼서 ‘값’은 더 비싸진다.
7. 사람들은 <수석>을 살 때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찾는다. 그러니 장사하는 자들은 ‘인공으로 만든 돌’을 자연적으로 속여서 모르는 자에게 비싸게 파는데, 근본을 모르니 다 속고 산다.
8. <사람>도 ‘자기가 찾는 자’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여지게 한다.
9. <인생>도 잘 만들면, ‘자기 형상의 돌’이 수십 억 년 동안 수마되듯 하여 형체만 잘 남게 되니, 특별한 모양이 없어도 ‘진짜’로서 매끄럽고 순수하다.
10. <천연 자연수석의 형상>은 항상 ‘사람이 원하는 모양’에서 조금씩 부족하다. 그렇다고 부족한 곳에 인위적으로 손을 대니, 그 가치가 자연수석보다 10배, 100배 떨어지게 된다. <사람>도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손댄 자’가 아니라서 무가치한 자가 된다.
11. <사람>이든 <물건>이든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가치’도 ‘값’도 좌우된다. <전환>
12. 스스로 조심하며 살 때, 편안하게 살게 된다.
13. 스스로 잘하여라.
14. <스스로 하는 자기 삶의 기술>이다.
15. 스스로 잘하려면, ‘그 일’을 배워야 된다.
16.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펴오면서 개인과 민족과 세계적으로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17. 조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운명>이 돌아갔다.
18. <사람>을 최고로 조심하여라.
19. 일할 때, ‘분별’하고 ‘앞뒤좌우’를 보고 행해야 된다.
20. 조심하지 않으면, 하찮은 데서 죽기도 하고 ‘큰 문제’가 터진다.
21. <스스로 존재하시는 삼위와 일체>되면 너희도 스스로 조심히 행하면서 살게 된다.

22. 스스로 존재하려면,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철저히 행하여라.
23. 너는 <스스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라.
24. 항상 행해야,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된다.
25. 누가 시켜서 하다보면 언젠가는 안 시키면 못 하게 되니, 스스로 삶이 무너져서 끝나게 된다.
26. 신앙도 <누가 시켜서 하는 자>는 그가 잊고 안 시키면 못하게 되고, ‘딴 길’을 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스스로 행하라.
27. 저마다 <자기>가 행하도록 ‘모든 지체’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스스로 행하여라.
28. 시켜서만 하면, <자기 때>를 다 놓친다.
29. <자기>가 스스로 하면, ‘24시간’이 할 기회다. <타인>에 의해서 시키는 것만 행하면, ‘억지’가 되고 ‘할 일’도 얼마 안 된다.
30. <타인>은 자기 주관대로만 시키니, 그 생각으로만 살게 된다. 끌려가지 말고 <성령과 주>와 함께 행하여라.
31. <스스로 조심하라는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만 가지’를 깨닫고, 고치고, 조심하며 행해야 된다.
32. <행하는 것>마다 늘 ‘위험’과 ‘문제’가 따르니, 스스로 조심하면서 행해야 된다.
33. <스스로 조심하라는 단어>를 행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행할 때마다 지키게 된다.
34. 우리는 <신>이 아닌 <육의 몸>이라 ‘생각’이 안 나면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함’을 항상 생각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35. 스스로 조심하고 행하면, 안전하다.
36. 어떤 일은 <꼭 해야 될 일>이니, 극히 조심하고 확인하고 행해야 된다.
37. 하나님과 성령님이 “스스로 조심하라고 살아라.”하고 어명하셨으니, 이제 매일 그리 살아라.
38. <조심하지 않고 행한 자>는 이미 ‘사고’가 나고, ‘문제’를 당해서 후회를 하고 있다.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교육 잠언>

1. <육>으로만 감을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지 못한다. <영>으로 신령해야 된다.
2. 신령하려면 먼저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여 ‘신령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목적을 두고 <생각>을 집중하면, 송신탑에서 보낸 전파가 수신되듯이 느껴오고, 들려오고, 보인다.
3. <생각을 집중하고 사는 자>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느니라.
4.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야 ‘얻을 것’도 얻게 되고, ‘할 일’도 생기고, ‘갈 길’도 생긴다.

5. <정신 일도>하면, ‘신’이 된다.
6. <정신 일도, 생각 일도>하면, ‘육의 할 일’과 ‘영의 할 일’이 보이고 생각한다. 깨닫고 보면 모두 ‘시급한 일들’이다.
7.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가장 빨리 통할 수 있을까? - <인간>이 먼저 불려야 통한다. <인간>이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100번을 부르셔도 안 통한다.
8. 영들은 특히 ‘사람이 생각을 집중할 때’ 좋아한다. <자기의 할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신>과 통하려면, <상대인 인간>이 먼저 ‘신’을 부르고 찾아야 된다. 그래야 ‘할 말’을 하시어 쉽게 통한다. <신>이 부르면 ‘한 단계 낮은 인간’은 모른다. 고로 ‘먼저 부르기’다.
10. <인간이 먼저 영을 부르는 것>이 ‘영계에 들어가는 공식’이다. 그러므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11. <하나님>을 부르면, 바로 ‘대답’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나를 부른 목적을 행해라.” 하시며 지켜보시기도 하신다.
12. 어느 때 <하늘>과 잘 통할까? - 첫째, 기도할 때 잘 통한다. 둘째,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때 항상 동행하시니 잘 통한다. 셋째, 주께 와서 묻고 할 때 금방 통한다.
13. 평소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대화하지 않으면,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성령의 말’도 ‘주의 말’도 안 들린다.
14. <사람>도 불려야 쳐다보듯이, <신>도 ‘육계의 대상들’이 본체이신 삼위를 불려야 쳐다보고 말씀하신다.
15. 항상 쉬지 말고 <생각>에서 ‘목적’을 굴려야 된다.

<2020년 2월 11일 화요일 교육 잠언>

1. <자기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영광을 드러야, 삼위께서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신다.
2. 모든 일을 할 때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해야 이루어진다.
3. <생각>에서 떠나면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고 한 일>은 ‘공적인 일’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은 ‘사적인 일’이 된다.
5. <주께 붙는 자>는 주와 더불어 휴거된다고 했다. ‘붙는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붙게 된다.
6.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의해 주께 붙었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으로 주께 붙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였고, <신약 때>는 ‘주를 믿는 것’이 ‘의’였기 때문이다.
7. <성약시대>에는 ‘사랑하는 것’이 ‘의’다. <이 시대>는 ‘사랑으로 주께 붙는 시대’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는 정신과 생각을 잊지 않는 자>가 ‘살아있는 자’로서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
8. 항상 <정신과 생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잊어버리지 않고 행해야 된다. 이것이 ‘하늘의 일을 행하는

큰 비법' 중의 하나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고 한 일>은 '공적'이 되어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지 않고 한 일>은 '사적인 일'로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0.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게 됐다(시 50:22)."라고 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모두 '죄'가 된다.

11. <사랑>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12. <하루>를 살아도 '삼위와 주'를 부르고 대화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삼위와 주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사는 것>은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보지 않고 무턱대고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것저것 다 넣어도 '제대로 된 맛'이 안 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생각하며 사는 자>는 '음식을 할 때 맛을 봐 가면서 만드는 자'와 같다.

14. <생각>을 하고 있어야 '계시'가 와도 안다. <생각>을 안 하면, '계시'가 와서 아무리 부딪혀도 모른다.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교육 잠언>

1. <생각>을 안 하면, '행실'을 제대로 안 하게 된다.

2. <생각>하면, '눈'으로 쳐다보고 관찰하게 된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기 옆에 차가 지나가도 모른다.

3.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예리하고, 날카롭다.

4. <생각 교육, 정신 교육>이다. <나무>를 '기계와 톱'으로 끊고 깎고 다듬듯이, <정신과 생각>을 '말씀'으로 닦고 깎아야 된다.

5.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들'을 골고루 깨닫게 된다.

6. <생각>, '연구'다. <생각>에서 놓치지 말아라.

7.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정신>으로 살아간다. 고로 <생각>을 잘해라.

8. <생각>을 잘못하고 하면, '딴 세상'에 가 있다.

9. <생각>은 '전화기'와 같다. <전화기>가 켜져 있어야 '전화가 온 것'을 알듯이, <생각>을 켜 놓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충분히 받게 된다.

10. <생각의 세계>는 '신적 세계'이기 때문에 한 번에 '10가지'도 볼 수 있다. <생각>이 숙달되고 숙련되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과 같다.

11. 한번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축구 결승전 경기를 뛰어야 하는 입장이었다. 그때 <야심작에 꽃을 가져다 놓은 것>이 생각나서, 뛰면서 수시로 쳐다봤다. 그런데 사람들은 백보좌를 쳐다보기는 했어도 <생각>을 안 하고 봐서 몰랐다. <꽃>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어도 몰랐다. 선생이 축구를 끝내고 가서 보니, 비를 계속 맞아서 꽃송이가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12. <생각>을 안 하면, 쳐다보고 있어도 '할 일'을 못 한다.

13. <생각>이 ‘생명’이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보고 살아간다.

14. <생각의 시동>이 안 걸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해를 못 한다.

15. <생각>을 ‘화살’을 쏘듯이 정확히 쏘아라.

16. <생각>을 배우고 깨달아라.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어도 ‘정신과 생각’이 시원찮으면 볼 것이 없다. 고로 ‘정신 교육, 생각 교육’이 꼭 필요하다.

17. <말씀을 듣는 것>이 ‘정신 교육, 생각 교육’이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간다.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교육 잠언>

1. <정신을 차리는 것>은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깬 것’과 같다.

2.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과 같다.

3. <절벽을 오르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올라가듯, <외줄을 타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외줄을 타듯, <운전하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운전하듯, <답안지에 답을 쓰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쓰듯, 평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하여라.

4. <정신을 차리고 한 것>은 <정신을 안 차리고 한 것>과 ‘천 배, 만 배 차이’가 있다.

5. <정신>을 차리고 행하되, ‘하나님을 향한 정신’이나, ‘자기 주관권의 정신’이냐가 중요하다.

6. <누구를 위해 정신을 차렸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

7. <하나님을 위한 정신>은 그대로 ‘육신의 의’가 되고, 그 영도 변화되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된다. <의의 영>으로 변화되면, ‘영원한 형상’을 이루어 영원히 유익이 된다.

8.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 <성령님을 위한 삶>, <주를 위한 삶>이 될 때, 그 삶이 공적이 되어 ‘자기 영의 형상’을 좌우한다.

9. <육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영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더 오래 걸린다. <영의 형상>을 만들면, 영의 빛을 강하게 발하며 ‘강도 높은 영’이 된다.

10. <정신>을 안 차리면, ‘생각’이 구름 낀 날같이 자꾸 어두워진다. 그러다가 ‘영’도 어두워져서 흑암으로 가는 영이 된다.

11. <기도할 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졸지 않는다.

12. 항상 <절벽 길을 가는 사람>이 정신 차리고 가듯이, 정신 차리고 행하여라.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교육 잠언>

1. <생활의 신앙>이다.

2. <말씀 들은 것>을 생활 속에 들어가서 ‘실천’해야 얻을 수 있다.

3. <말씀>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
4. <실천>이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깨닫고, 알고, 얻고, 배워라.
5. <주>를 만나야 하나님의 구상대로 멋지게 살 수 있다. <기성>은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해서 곤고 속에 살고 있다.
6. 멋지게 살려면, <멋지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7. <말씀>을 배웠어도 거둬서 배워야 된다. 대개 ‘어렸을 때 배우는 것’과 ‘커서 배우는 것’은 다르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특히 역사를 자세히 배우고 알아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다.
8.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살아라.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된다.
9. 늘 <주>와 <증거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본인>이 굳건하게 기도해야 된다.
10. <기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부들의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11. <자기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 놓아라. 하나님께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대로 잘되게 해 주신다.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교육 잠언>

1. <뇌의 최고 첨단의 이치>는 ‘감각’이다.
2. <뇌>는 ‘감각’으로 느끼면서 조종한다. 고로 ‘감각’을 제대로 느껴야 된다.
3. 무엇을 하든지 <최첨단의 기술>은 ‘감각’이다.
4. <감각>이 없으면, 필요 이상으로 ‘일’을 크게 한다.
5. <차>를 운전할 때도 ‘감각’이 없으면 시속 130km, 150km가 넘었어도 계속 달리다가 사고가 난다.
6. <신앙>도 <인생의 삶>도 ‘감각’이다. 감각은 언제든지 필요하다.
7. <뇌>는 ‘감각’을 느끼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8. <할 것>, <하지 말 것>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분별’이다.
9. <분별의 분(分)>은 ‘나눌 분’이다. 나눠보면 ‘답’이 나온다. 가령, 3명이 일을 했는데 누구의 힘으로 일이 잘 됐는지를 알려면, 나눠보면 된다. 각자가 한 일을 나눠보니 한 명은 50, 다른 한 명은 40, 다른 한 명은 70만큼의 일을 했다.
10. <분별>하면, ‘답’이 나온다.
11. <어떤 것을 두고 분별하는 일>이 가장 어렵다. 그러나 꼭 ‘분별’해야 된다.
12. 사람들은 <분별하는 단계>에서 ‘한계’를 맞고 ‘맥’을 못 쓴다.
13. <감각>과 <분별>이다.

14. <적정선>을 지켜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안 해도 안 된다.
15. <적정선>을 넘어서 하면, 힘들어진다. <적정선>을 넘지 못해도 하기 싫고 힘들어진다. 고로 <적정선>을 지켜 행해라.
16. <적정선을 지키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다.
17. <적정선 유지>가 잘 되어야 성공한다.
18. <적정선>은 ‘합당한 선’이다. 비행기도 ‘적정선’에서 날지 않으면 엔진에서 불이 난다.
19. <인생>도 ‘적정선’에서 살아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다.

<2020년 2월 1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다. 하나님의 시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행해야 된다.
2.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위치’에서 알고 행한다. 또 <기도>하면, 주가 영으로 혼으로 가르쳐 주어 알고 행한다.
3.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몰라 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괴롭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어이 깨닫게 해 주신다.
4. 이 시대도 <기성>이 ‘하나님의 시대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누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정’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
5.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고, 우상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해 주고 복을 주는 줄로만 생각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으니, 결국 그들을 전쟁으로 치고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우상을 섬겨서 심판 받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야 마셨다.
6.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녕코 이루시는데, 그 뜻을 먼저 ‘메시아나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며 전하게 하신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 줬는데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서 참지 못하신다. 하나님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못 견디고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되니, 스스로 자제하고 참으신다.
7. <하나님>은 사람같이 금방 화내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돕고 깨닫도록 말씀하신다. 그러다 때가 되면,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깨닫게 하신다.
8. <예레미야 10장 19절>에 하나님은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셨다. <사람>이 ‘화’가 날 때 혼자 참으며 분노를 가라앉히듯이, <하나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스스로 자제하시고 참으신다. 그래도 안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분노를 푸신다.
9. 하나님은 온 지구상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녕코 깨닫게 하신다.
10. <지난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봐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는 식’으로만 따지지만, ‘믿는

식'으로 따지면 금방 들통 난다.

11. 신약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외치셨어도 <유대종교인들>은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막고 불신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37년 후, AD 70년에 <로마군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성전을 파괴>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하셨다.

12.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그렇게 외치셨어도 <기성>은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도 믿으며 기다렸는데, 그들이 생각한 대로 안 오니 실망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괴로움을 당하며 못 견뎌한다.

13.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환난'과 '오염'과 '질병'과 '태풍'과 '지진'으로 쳐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

14.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계획적으로 괴로움을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잘못'도 깨닫게 해 주신다. 괴롭게 해야 절실히 깨닫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겁게 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희망에 차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15. <시대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신다. <전환>

16. 깨달으려 해야, 깨닫는다.

17.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을 깨달아야 된다.

18.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된다.

19.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20. <자신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믿고 살아야 된다.

21.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함>을 깨달아야 된다.

22. <자신이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됨>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23. <하나님께 약속한 것 잊지 말고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된다.

24. <깨달을 때>까지 계속 '형벌'을 받는다.

25.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옛날 '소돔 땅 심판'과 '노아 때 심판'을 더욱 알아라.

26. 하나님은 <한 시대>를 두고 '기회'를 주신다.

27.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기간>은 '개인이 사는 당세 기간'이기도 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기간'이었다.

28.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오래 전부터 구상하시고 행하신다.

29. <평소에 하던 짓>을 하다가 그대로 '심판의 날'을 맞게 된다.

30. <의인>은 열심히 하다가 못하더라도 ‘심판’에 걸리지 않도록 ‘환난’을 피하게 해 주신다.

<2020년 2월 16일 주일 잠언>

1.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같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욕’을 쓰고 말씀을 전하시어 구원자로서 따르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다.

2.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됐다. 이로써 ‘구약역사 4000년 동안 기다렸던 희망’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역사’요, ‘메시아의 구원역사’였다.

3.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약 자녀급으로 부활된 자들>은 ‘구약의 율법제도’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각종 율례와 까다로운 법칙과 행사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 중에는 제사법, 안식일 법, 할례 법, 구약에 속한 행사와 옷차림과 음식을 제한한 것 등이 있었다.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러한 구약의 수십 가지의 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 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아니었다.

4.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종’에서 풀려 나와서 ‘신약 자녀급 사랑’을 받으며 새 시대 구원역사를 펴 나갔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구약의 종급 제사장과 지도자와 그에 속한 자들>은 ‘새 시대 메시아’를 최고 악한 자로 보고 불신하고, 외면하고, 반대하고, 악평하고, 멸시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계획적으로 고통을 줬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복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쓰고 계속해서 행하셨다.

5. <미련하고 교만한 유대종교인들>은 정치인과 관원들을 동원했고, 무지한 그들도 유대종교인들을 따라 예수님을 악하게 대했다. 결국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겼고, ‘죄인’으로 판정하여 사형을 시켰다.

6. 유대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인간으로서 최고 악행’을 저질렀다.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마귀와 사탄들이 ‘악한 자들’을 쓰고 갖은 잔인한 행동들은 다 했다.

7. <예수님>도 <따르는 자들>도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없이 억울하고 비통했지만, 예수님은 죽어가면서도 저들이 모르고 한 짓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 ‘그들을 살리는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짓’을 ‘자신에게 하는 행위’로 보시고, 모두 ‘죄’로 보셨다. <최고로 사랑하는 민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보낸 자’를 그리 대하니,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메시아 한 명의 희생을 통해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참고, 참으셨다. 그들의 무지한 짓을 용서하고 살리기로 결정하셨으니,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참으셨다.

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라 ‘분노’를 이기신다. 만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현장을 보고 참지 못하셨다면, 순간 소돔 땅같이 심판하셨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대병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의 심정과 같은 입장’이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의 왕들>은 보통 이런 처지를 참지 못하고 당장 멸하고 처단시킨다. 그러나 역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천하를 동원시켜서 행하시는 존재자로 ‘목적’을 두고 기어이 행하셨다.

10.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하늘의 자녀들>은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에 찼고, 막막한 처지에 좌절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지 3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 봤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기쁨에 차서 갈릴리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좋아하고 기뻐했다. 그 후 40일 동안 사람들은 ‘부

활하여 나타나신 영원한 존재자, 주의 영'을 자주 보고 함께했다. <전환>

11.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는 세상을 겪으며 성장하고, 예수님을 쓰고 나타나신 성자께 '시대 말씀'을 배우다가, 때가 되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신약역사가 끝나고 메시아로서 <천 년 성약 신부역사>를 펴 나가는데, 세상은 모함하고 갖은 핍박과 불신으로 대했다.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니, 따르던 자들과 국내와 해외를 다니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12. 이 시대를 파악해 보면, 먼저 <따르던 자들>이 '가룟 유다'같이 돌변했고, 그들이 <불신한 기성>과 일체 되어 핍박하고, 반대하고, 헐박하고, 악평하고, 거짓으로 말을 만들어 언론화했다. <구시대 기성인들>과 <새 시대를 따르다가 육적으로 돌변한 자들>이 '악'을 행하여 이방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신약 때 예수님이 "이 세대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제사장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하리라."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스데반의 피로부터 시대의 제사장들인 지도자들의 피까지 담당해야 했다. 결국 하나님과 성자는 선생을 한국으로 오게 하였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이 시대에 해당되는 환난의 십자가>를 '10년 동안' 지게 됐다.

13. <10년의 십자가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기간의 확대판'이다. 10년간 옥에서 기도하고 생명관리를 하며, 편지 70만 통, 수만 개의 잠언, 설교 2000번 이상을 써 썼다. 1000편 이상의 시를 쓰고, 노래 170곡을 받으며 불펜 4400자루를 썼다. 뿐만 아니라 근력운동을 100만 번 하고, 7000리를 뛰고, 그림도 수백 장을 그리고,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썼다.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계속해서 '산 자'같이 행했다.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다가 <2018년 2월 18일 주일 새벽 4시>에 '10년의 고난과 고통'을 끝내고 나왔다.

14. <10년의 십자가 기간 동안> '하나님 자연성전의 근본'도 깨닫고 밝혔고, 모두 '휴거의 대 역사'도 맞았다. 십자가 기간을 끝내고 나와서는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 말씀'을 전해 주었고, 이후로 2년 간 '수백 번의 모임'을 하며 수천 번의 말씀을 전하며 '부활의 기쁨의 역사'를 행했다.

15. 우리는 <시대의 부활>을 이뤘다. '휴거의 사랑의 부활'도 이뤘고, '하나님 성전 건축의 부활'도 이뤘다. <산 자>로서 신부역사를 펴 나가니, '부활의 기쁨의 삶'이다. 이제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차원을 높이면서 살아라.

16. <부활된 삶을 사는 자>는 '부활된 자'다.

17. <행하는 자>는 '산 자'다.

18. <사랑의 부활>이다. <휴거의 부활>이다. <실천의 부활>이다.

19. <벗어나는 부활>이다. 부활됐으면 '새 세상'이다.

20. <부활>은 '1차 부활', '2차 부활', '3차 부활'이다. 역사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하다. '1차 애굽을 떠나는 부활', '2차 신광야 삶의 부활', '3차 가나안 복지의 부활'이다.

21. <부활>은 '최고의 것'이다. <더 좋은 부활>을 하려면, '현재'에 더 해야 된다.

22. <현재를 존재시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23. <죽은 자들>에게나 '부활'이 필요하고, <산 자들>에게는 '산 자들로서 삶'이 필요하다.

24. <산 자들>에는 '더 빛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

25. <부활>된 대로 얻는다.

26. 하나님은 <산 자>에게만 '줄 것'을 주신다.

27. <영>이 살아야 ‘영적인 것’을 얻고, ‘영원한 세계’를 얻는다.

28. <시대의 부활>이 있다. ‘그 시대에 해당되는 부활’을 해야 된다.

29. <육신 시체 부활>이 아니라 <영적 정신적 부활>이니,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살아서 제대로 하는 대로 온전히 부활된다.

30. <온전한 부활>이 안 되고 <부분적인 부활>이 되면, ‘온전한 세계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다.

31. <살아난 목적>이 무엇이나.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기 위함이다.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교육 잠언>

1.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과 생각’이다.

2.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말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같다.

3. <하나님의 정신>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

4.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칼같이 예리해야 된다. 그래야 ‘왕 같은 시대의 제사장들’이 되어 자기를 통솔하고, 자기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의와 선으로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

5. <정신>은 어떻게 잡을까? 본인이 ‘자기 정신’을 가다듬고, 행실을 할 때마다 작으나 크나 ‘목적’을 두고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분별해야 된다.

6. <손>은 가만히 있으면 힘이 하나도 없지만, ‘힘’을 주면 금방 힘이 생긴다. 이와 같이 <정신>도 가만히 놔두면 흐리멍덩하게 되고, ‘집중’하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

7. <힘>은 어떻게 생길까? 상대성의 원리로 ‘힘을 쓸 곳’이 있을 때 생긴다. 힘을 쓸 곳이 없으면 ‘힘’을 줄 필요가 없으니 가만히 있게 되고, 그러다가 ‘힘’이 빠져나간다.

8. <힘>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온다.

9. <스스로 힘이 오지 않을 때>는 ‘상대로부터 오는 말과 행실’과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힘이 온다.

10. <힘>은 ‘스스로 정신을 차리는 것’에서도 오지만, 대개 ‘상대’로부터 반응을 보이면서 온다. 그때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도 ‘생각’도 ‘마음’도 좌우된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교육 잠언>

1. 뇌를 쓸 때는 <뇌 명령>을 해서 쓰기도 하고, <생각>으로 움직여서 쓰기도 한다.

2. <뇌신경>은 자기가 ‘명령’하거나 ‘생각’만 하면 움직인다. 그러나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

3. <판단>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판단’이 어려우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다.

4. 하나님께서 어렵히 알고 하시겠느냐. <너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
5. <주의 육신이 천년 동안 남아서 할 교육>을 ‘한 마디’로 하면, “<주를 끝까지 믿어 주고, 주와 같이 행하는 것>을 ‘삶의 절대법칙’으로 삼아라.”이다.
6. 신약 때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성약에서도 ‘구원의 테두리’는 동일하다. <주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 <주와 같이 행하는 것>이다.
7. <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세상만사’가 다 흔들리고 ‘지구촌’이 다 흔들리고 이해가 안 된다. <그동안 듣고 배우고 이해한 것들>도 ‘믿음’이 흔들리면, 파산되고 복잡해진다.
8. <주>가 자주 나타나서 교육을 해 주는 만큼 ‘확신’을 갖고 온전하게 자신을 만들기도 하지만, 주에 대해 ‘인성’으로 기울어지기도 한다.
9. <가뭄>에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소나기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며, 비를 몸에 맞고 비를 마시기도 한다. 그러나 <장마철>에 비가 자주 오면, 비에 대한 고마움을 잊는다.
10. 늘 <은혜>를 베풀면, ‘은혜에 대한 보편성’을 갖게 되어 은혜 받는 것이 ‘생활화’가 된다. 반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가 메말라서 ‘고달픈 인생’이 된다.

<2020년 2월 19일 수요일 교육 참언>

1. <너의 정신>을 확실하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꽂아라.
2. <자기>가 ‘자기’를 흔들리게 만든다.
3. 선생은 신앙을 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완벽하게 깨달았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지?”하고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려운 환경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때마다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주>도 ‘절대적인 시대 말씀’을 주며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었으니, 확실히 믿어라.
4. <소 말뚝>을 시원찮게 박아 놓으면, 소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이 채간다. 소를 ‘소보다 큰 나무’에 매어 놓아야 확실하다. 이와 같이 <자기>를 ‘주(主)라는 생명나무’에 묶어 놓아야 된다. 완벽하게 묶어 놓지 않으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이성’에 흔들린다.
5. <주 앞>에는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6. 뇌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사탄의 꾀’를 받는다. 주 앞에 평소 이성으로 의심하고 있으면 ‘이성의 이야기’를 하며 꾀고, 말씀으로 의심하고 있으면 ‘말씀’을 꺾으며 꾀다. 그러면 <지능이 낮은 자>는 상대가 따지는 말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7. <사탄과 마귀>는 ‘자기 인식관’대로 꾀다.
8. 지구상 어느 누구에게도 ‘꾀’를 받지 말고, 오직 <주>와 일체 되어라.
9. <메시아 관>을 확실하게 꽂아 놓아야 ‘사탄’이 채어가지 않는다.
10. 매일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이는 ‘매일 몸의 때를 벗기는 것’과 같다.

11. <사탄>이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라.

12. <잠자기 전>에도 꼭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꿈’을 꾸는다.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사탄이 ‘좋은 꿈꾸는 것’을 막고, ‘혼’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2020년 2월 20일 목요일 교육 잠언>

1. <정신>은 ‘몸의 등불’과 같다. <등불>이 있어도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해서 아무 것도 빛을 발하지 못하듯이, <몸>이 있어도 ‘정신이라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2. <정신>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신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신을 어떻게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3. <정신>은 ‘신경’에서 발생된다. <마음과 생각>도 ‘신경’에서 발생된다. 고로 <뇌신경>을 잘 조종할 줄 알아야 된다.

4. <손>은 잡아서 끌고 가면 움직이지만, <뇌>는 ‘말’로 움직인다. 이것을 ‘뇌의 작용’이라고 한다. 가령, “눈을 감아라.”라고 하면, 신경이 알아듣고 눈을 감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 신경이 하던 것을 멈춘다.

5. <명령하고, 지시했을 때 말을 안 듣는 신경>은 ‘맛이 간 신경’이다.

6. <뇌 작용을 못 하는 자>는 ‘식물인간’이다. <식물인간이 됐다는 말>은 ‘뇌가 근본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말’이다.

7. <신경>이 ‘작동’을 잘 해야 된다.

8. <눈>이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도 ‘시신경’이 죽어서 작동을 못하면, ‘못 보는 소경’이다.

9. <스마트 폰>이 있어도 개통을 안 하면 안 터지듯이, <신경>이 있어도 굳거나 죽으면 ‘작용’을 못 한다.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10. <신경>이 죽으면, ‘그 센터에서의 역할’을 못 하게 된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교육 잠언>

1.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냐, 조금 했냐’와 상관없이 <정신 줄, 생각 줄>을 순간순간 놓고 산다.

2. <생각 줄을 얼마나 강하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3. 선생은 10대 때 최고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며 <인생 문제>에 부딪혔다. ‘학문을 배우지 못함’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혔다. 이와 같이 10 때는 <공부>뿐만 아니라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이 고민이 된다. 공부로 1등을 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팔자’를 고치고, ‘세상을 휘날리며 살게 되는 것’이 아닌데, 주변에서는 늘 공부로 1등을 하라고 하니,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할 필요가 있나?”하고 생각하게 된다. 선생이 했던 걱정들은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 산골짜기에서 살 것인가, 도시로 나가서 살 것인가?”하는 고민들이었다. 그러나 살아보니, <과거에 했던 걱정 중>에 10%만 ‘걱정해야 될 문제’였고, 90%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문제’였다.

4. 선생은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의 뜻>을 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지? 오히려 걱정과 근심을 하고 고민하며 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 섭리역사의 기류>를 타고 가기 때문이었다. <섭리역사의 기류>를 타고 역사를 따라와 보니, ‘걱정을 안 해도 될 역사’였다. 이와 같이 <따르는 자들>도 ‘주와 같은 운명권 세계’에 사니, 지독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5. <섭리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의 기류’를 타고 간다. 그러니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된다. 본인이 안 가도, 섭리사가 가기 때문이다.

6. 하나님은 <섭리사 사람들>을 데리고 ‘뜻’을 이뤄야 하니, ‘하나님의 신세,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잘 되게 해 주신다.

7. <빠른 테크닉>으로 빨리 움직이고, 빨리 생각하고 살면 ‘크게 걱정할 일들’이 없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 된다.

8. <뇌>를 잘 사용하라. 괜히 ‘필요 없는 걱정’을 하며 낮이 나가있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확실하게 살아라.

9. <학문의 세계>에는 ‘인생살이에 대한 답’이 없다. 철학자들 중에서도 ‘인생길을 찾고 책을 써놓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다.

10. <월명동>에는 “길이 없어서 갈 길을 못 가겠다.”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길’을 다 닦아 놓았다. 이와 같이 <섭리사>에서도 선생이 ‘인생의 길’을 찾고, 닦아놓고,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니, ‘길을 못 찾고 인생을 헤매는 일’은 없다.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육신>이 한 번 죽은 자는 못 살아나듯이, <영>도 한 번 ‘사망의 죽음’에 처해 버리면 못 살아난다.

2. <영이 죽은 것>은 ‘자기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안다.

3. <영>이 ‘사망’에 삼킨바가 되면, 마치 <개구리>가 ‘뱀’에게 먹혀서 못 살아나듯이 살아날 수가 없다.

4. <육신>이 살아나가면서 각종으로 조심해야 하듯이, <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각종으로 조심’하고,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5.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에 따라 ‘육신의 운명’도 ‘영의 운명’도 하나님 주관권이냐, 이를 벗어난 사망의 주관권이냐가 좌우된다.

6. <차를 운전하는 자>가 ‘운전대’를 생명시하며 꼭 잡고 좌우를 살피면서 집중하여 운전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도 범사에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꼭 잡고 살아야 된다.

7. <힘>도 <생각>도 <마음>도 쏟을 곳에 쏟아야 ‘목적’을 이루게 된다.

8. <사랑>도 ‘쏟아야 될 자’에게 쏟아야 된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영원히 사랑을 쏟아야 될 대상’이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쏟다말면, ‘온전하고 완전한 목적’이 이뤄지지 않는다.

9. <집>을 지을 때 자료의 99%만 써서 짓는다면, 어딘가는 완성이 안 되었으니 ‘온전한 집’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랑>도 영적으로 100% 쏟아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영’을 완성할 수 없다.

10. <사랑>을 하다 말면 ‘사랑의 형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상은 ‘불구자 사랑’이다. 온전히 사랑하여 완성된 사랑을 해야 ‘정상의 사랑’이 되듯이, <영>도 그러하다.

11. <한 가지>를 완성하면, 거울삼아 ‘그와 같이 다른 것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2. <생각>에서 ‘완성의 계획’을 해야 <몸>도 이에 따라 ‘완성의 대상’이 되어 행하게 된다.
13. <뇌>가 기억해야 ‘몸 신경’에 전달된다.
14. <뇌>는 나이가 먹으면 ‘뇌신경’이 늙어서 죽으니, 기억이 잘 안 난다. <뇌>는 ‘생각과 행위’로 움직이니, 쉬지 말고 ‘뇌의 일’을 시켜야 된다.
15. <기억의 뇌>, <세밀한 뇌>, <젊은 뇌>를 만들려면, ‘젊은 자들’같이 행해야 된다.
16. <뇌>는 ‘기도하여 신령한 생각’을 하고, ‘생각 집중’을 해야 안 늙는다.
17. <뇌로 만든 기계나 장비들>도 쓰다가 안 쓰면 바로 ‘녹’이 쓸 듯이, <뇌>도 <지체>도 안 쓰면 바로 ‘퇴보’된다.
18. 쓸수록 <빛>이 나고, <생각>이 높아진다.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교육 참언>

1. <주>는 ‘가치를 알아주는 대로’ 내 놓는다.
2. <물건의 주인>도 ‘물건의 가치를 몰라 주는 자’에게는 팔지 않는다.
3. <가치>를 모르면, 냉정하게 ‘모사’를 쓰며 입장을 돌려버린다.
4. 사람은 안 배우면, 죽을 때까지 모른다. 모르면, 행하지 못한다. 행하지 못하면, 손해가 간다.
5.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
6. <어떤 목수>에게 ‘집을 지을 자료’를 줬는데, 자료를 다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을 보았다. 알고 보니, ‘사용할 것’은 이미 쓰고 ‘쓰고 남은 나머지’를 버린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필요한 사람’만 사용하신다. 고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주께 배워라.
7.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님께 사용된다.
8. <월명동 돌 조경>을 쌓을 때, 필요하지 않은 돌들을 2~300트럭 이상 버렸다. <버린 돌들>은 ‘합당하지 않은 돌’, ‘약한 돌’, ‘깨지는 돌’이었다. 그 돌들은 땅에 묻어서 물이 잘 빠지게 하는데 썼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그러하다. 그동안 섭리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지만, <정말로 진실로 가치 있게 사는 사람>만이 남았고, <나머지>는 제 발이 저려서 나가게 하셨다.
9. <소나무>도 “멋있다! 아름답다! 웅장하다!”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5~60년 이상 키워야 된다. 그 동안 사람들이 베어가지 않는지 지켜봐야 되고, 철사를 감아서 수형을 잡아 줘야 되고, 제때마다 거름을 주면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키운 나무들이 지금 ‘거목’이 되었다.
10.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정말로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2020년 2월 22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육신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정신적 마음의 부활>과 <행실의 부활>이다.

2. 만일 <육체 부활>이라면 한 번 부활하고 끝나니, ‘발전’도 없고 매일 ‘부활의 희망’도 없다.
3. <삶의 부활>이니, 매일 더 좋게 생활하면서 ‘기쁨’과 ‘희망’과 ‘사랑’이다.
4. 성경에는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 더 고생도 하고, 더 뛰고 노력하라고 했다. 이로써 <육체 부활>이 아니고 <삶의 영적인 부활>임을 알아야 된다.
5. <애벌레>는 ‘나비’로, <달걀>은 ‘병아리’로 부활한다. <부활>하면, ‘더 이상적인 삶’을 산다.
6. 예수님도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을 하셨다. <영>이 만민을 위해 ‘사망권’에 죽어 있다가 짓값을 다하고 ‘생명권’으로 나와서 <영의 부활>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고 ‘영으로 승천’하셨다.
7. <구약 종급 시대>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들은 <신약 자녀급>으로 부활했다. <신약 자녀급 시대>에서 ‘이 시대 주를 통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들은 <성약 신부급>으로 부활됐다. <시대>를 보아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행실’로 부활되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 같은 ‘영적 부활’이다.
8. 이를 깨닫고 매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더 좋은 삶을 사는 부활>을 해야 된다.
9. 사람은 <더 좋게 사는 것>이 ‘희망’이다. 그러므로 ‘시대’를 맞아야 되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
10. 모두 <더 좋게, 더 잘 되게 하는 삶>을 희망하며 살아간다.
11. 더 좋게 되려면 <주 안>에서 더 뛰고, 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
12. <지루하지 않은 기쁨의 삶>은 ‘더 잘 되게 하는 수고의 삶’이다.
13. <시대 사명자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육체 부활’로만 알기에 ‘더 좋은 시대의 부활’을 이루지 못한다.
14. <새 시대를 맞는 것>이 ‘시대의 부활, 새로운 삶의 부활’이다.
15.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2020년 2월 23일 주일 잠언>

1.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는 “네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일곱 교회에 전해 주어라.” 하시어 <사도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을 ‘일곱 교회’에 전해 주었다.
2.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당시 일곱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일뿐만 아니라 ‘수천 년 후 미래의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까지 계시하신 말씀’이다.
3.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들>은 ‘시대’가 올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인봉’을 풀어 속 시원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
4.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때마다 ‘합당한 자의 몸’을 쓰고 행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총 담당하셨던 일들>을 ‘시대마다 따르는 자들의 육’을 쓰고 그들을 통해 행하셨다.

5. 요한계시록 6장~11장을 보면 <일곱 인봉>을 뿜 때의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 때의 ‘하나님의 축복과 진노’의 내용이 나온다. <재앙의 때>에는 그 위치에 ‘병’과 ‘각종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태풍’과 ‘가뭄’들이 일어나서 정한 때까지 심판을 받게도 되고, <축복의 때>에는 하나님이 ‘메시아’와 ‘천사들’을 보내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시는데, 축복은 오래 가고 영원까지 가기도 한다.

6. 하나님은 <7000년 섭리역사>를 두고 확대하여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동안 <일곱 가지 인봉>을 행하시고, 그때마다 ‘일곱 가지 인봉과 연관된 것들’을 실현하여 행하게 하셨다.

7.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다.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메시아 때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이고, 선지자 때는 ‘선지자의 말씀’이다.

8. 어느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택한 자>에게 ‘해(害)’를 주면, 해를 준 자를 ‘재앙’과 ‘병’으로 치셨다. 그러나 <말씀의 인을 맞은 자>는 미리 표시해 두고 ‘재앙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

9. <말씀>이 ‘인’이다. <말씀>이 ‘표시’다.

10.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도 <그들을 괴롭히고 못 가게 잡은 자들>을 ‘재앙’으로 치셨다. 그러나 <재앙>을 주어도 계속 반항하니, 마지막으로 ‘생명을 치는 재앙’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11.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야 하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표시’를 해 놓고 ‘재앙의 해’를 받지 않게 하셨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펴는데 지장을 준 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다 받게 하셨다.

12.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맞고 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재앙’으로 치신다. <개인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애굽의 주권관’을 빠져나올 때도 그러하고, <국가적>으로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괴롭힐 때도 그러하다.

13.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와 민족>에 ‘강대국’이 권력을 행세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행한 대로 ‘각종 재앙’을 내리신다. 결코 그들의 마음대로 못 하게 하신다.

14.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만 해하라고 하시면서, 그 기간은 ‘다섯 달’이라고 하셨다. <노아의 홍수심판 때>도 ‘다섯 달 동안’ 물이 덮쳐서 ‘노아와 식구들’은 150일 동안 방주에서 나오지 못했다.

15. <하나님의 심판>에는 ‘기간’이 있다. ‘한 때 두 때 반 때’다. 역사적으로는 1000년, 2000년, 4000년의 기간이 있고, 개인과 민족으로는 10년, 40년 등의 기간이 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합당하게 심판하신다.

16. 성경적으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중심인물이나 선지자나 메시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절대시하고 사는 자’다.

17. <인>은 ‘도장’이다. <인침>은 ‘자기 것 표시’이다.

18.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 믿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신다.

19. 사탄들도 사람들에게 <비진리>를 주어 믿고 따르게 함으로 ‘사탄의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닌다.

20. 하나님은 결국 <진짜 하나님 말씀의 인 맞은 자>만 남기고, 다 해하게 하신다. 현실로 증명이 되니, 보고 깨달아라!

21.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들>이 깨달을 때까지, 극복할 때까지, 시인할 때까지 행하신다.

22. 선생 개인을 봐도 지난날 삶 가운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르니, ‘전쟁과 죽음’에서도 살려 주시고, ‘같이 있는 자’들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세계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악인들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질병’과 ‘지진’과 ‘태풍’과 ‘각종 환난’에서 나오게 해 주시고, 해됨이 없게 해 주셨다. 섭리사 각 개인 모두 그러하다.

23.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의 인 맞은 자’다.

24. <성령의 감동을 받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다.

25.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시대 보낸 자>를 진실로 믿고 행해야 ‘하나님의 인 맞은 자’다. ◎ 성령님은 <요한 계시록 9장 4~6절>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두고도 하신 말씀’이라고 하시며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 질병의 재앙>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의 인을 맞지 않은 자’는 해한다고 하셨습니다. ◎ 이전에는 <지진>과 <태풍>과 <구제역>등으로 ‘풀과 나무와 흙과 돌들’도 사람들과 같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는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들’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두고도 계시한 말씀’입니다. ◎ 성령님은 이 말씀을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실제 되어지는 것’을 보고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섭리사 각 나라에서 수많은 보고들이 들어왔는데, 모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고를 피한 내용과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피하게 해 주신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보고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절로 생각이 납니다. ◎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말씀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 ‘그들의 부끄러운 속을 드러내 보임’을 깨닫고 보기 바랍니다. ◎ <이 시대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모두 행한 대로 ‘환난’을 받고,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 시대의 인을 맞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주어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하시고, <느낌과 영감>을 주어 가지 못하게도 하시고, <상황>을 틀어 환난의 장소에 가지 않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고 잡아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을 맞은 자들>이니, 지난날에도 환난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미래에도 환난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두 이를 깨닫고, 더욱 가치 있게 행하며 ‘이 맞’으로 오직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는 자’는, 두렵지 않다.

2. <하나님의 비밀>을 관심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자’는, 훗날에 깨달도록 심판하신다.

3. <하나님의 행하심>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결국 괴롭게 하여 깨우쳐 주신다.

4.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자기 무지대로 전한 교파들>은 결국 성경에 나온 대로 모두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5.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받아서 해당되는 곳에 쏟아 붓는다. 천사가 ‘심판의 대접’을 쏟아 부으면, 그곳에 사탄과 귀신이 함께 역사하며 괴롭힌다.

6.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를 해하는 ‘황충들’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다. <성경에 묘사된 것>을 보면, 이 시대 ‘코로나 군’과 비슷하다. <하나님의 진리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을 ‘황충들’이 해한다는 성경 말씀 그대로다.

7. 성경에는 <애굽을 덮친 메뚜기 재앙>도 나온다. 실제로 지구 세상에 ‘메뚜기 떼가 침범하는 곳’도 있었는데, 그 수는 수십억 마리였다.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바다에 가서 큰 고기를 잡아야 할 사람>이 ‘산골짜기에 있는 계곡의 도랑’에 빠져서 송사리만 잡고 만족하며 산다.
2. <지구세상을 누비며 영웅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 주관’에 빠져서 좋아하고 즐기며 살고 있다.
3. <천리만리를 걷고 뛰고 즐기며 살아야 될 사람>이 ‘오리 길’도 못 가고 만족해서 자리를 깔고 기뻐하며 ‘자기 주관’에 빠져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있다.
4. <제 인생의 갈 길을 못 가는 자들>은 때가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온 길’을 쳐다보며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한다.
5.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이 아닌 우상이나 사람과 동행하며 즐기며 산 자들>은 즐긴 만큼 후회들을 한다.
6.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먹고 마시며 즐긴 자들>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과 ‘이상세계’다.
7.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서 기뻐하고 즐기면, 그것이 마음에 만족한 것이다.
8. <무엇을 좋아하며 사느냐>가 ‘문제’다. 그러므로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행하여라.
9.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고 즐기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육>은 일생 동안, <영>은 영원히 ‘후회 없이’ 살게 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매일 그와 동행하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드리며 기쁘게 살게 된다.
11. <자기 행위>대로 그에 해당되는 ‘삶의 길’이 나고, ‘답’도 온다.
12. <온전한 주의 뜻>대로 살아라.

<2020년 2월 27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요한계시록 7장>을 자세히 보면, <사도요한>이 사명을 받고 영계를 보니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섰는데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사도요한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인 맞은 자들의 수>를 세어보니,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요, ‘총 14만 4천’이었다. 이 일이 있고, 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수를 셀 수 없이 나왔다고 했다.
2.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능히 배운다고 했다. 그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요, ‘거짓말을 안 하는 흠이 없는 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자>는 ‘우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곧 우상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서 깨끗이 한 자들’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한 자들’이다.
3.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무리>는 ‘구약 때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 맞은 자들’이다. 그리고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 믿고 따른 자들'이다.

4. <자기 도장>에는 '자기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인>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의 이름'이 있다.

5. <절대자 하나님과 그가 보낸 메시아의 이름이 든 인>을 맞지 않은 자는 '해(害)'를 받는다.

6. <하나님>이 '인'이다. <그리스도>가 '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이다. <메시아의 말씀>이 '인'이다.

7.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를 보면,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해한다는 말씀'이 생각난다. 모두 '스스로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인을 맞지 않은 자'다.

8. 사도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 4:12)."라고 했다. 이 말은 사람이 오랫동안 <단련>을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잘 적응하게 된다는 말'이다.

9. 모두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영광'을 돌리자.

10. <섭리사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세계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전체가 말씀을 못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양심'으로 전달하시고, '만물'을 통해 보이시고, '그 주관권의 대화 속'에 말하게 하시고, '자기 계산법'을 통해 충분히 깨닫게 하신다.

11. <영계>에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생각'이 전달된다. 이와 같이 <육계>에서도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없어도 '양심'으로 전달되고, '느낌'으로 전달된다.

12.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가만히 지켜보시며 "네 마음대로 하되, <네가 한 일>에 대해서는 행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신다. 그리고 '그 동안 행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13. 하나님은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괴롭게 하여 깨우쳐 주리라."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감행하여 깨우쳐 주고 계신다.

14.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지구촌 77억 명'을 깨닫게 해 주고 계신다. <잘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잘못한 자>에게는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15.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 '깨닫지 않고 배길 자'는 없다. 지도자일수록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깨닫게 된다.

16.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심판'을 감행하신다.

17. 계속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사람끼리 서로 위로한다고 해서 괜찮아지지 않는다. 이는 <비>와 <눈>이 오고 있는데 사람끼리 곧 날이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날이 좋아지지 않는 것과 같다.

18. 지금 이때는 먼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크고 충격적으로 깨닫고, <본인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야 된다. 또 시대를 보면서 기계를 수리하듯이 <자기 신앙>을 수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맞추게 된다.

19. <하늘>과도 '대화', <땅>으로도 '대화'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과 즐기게 대화를 해야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인다. 가만히 있으면, 두렵고 무서워진다.

20.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신부들을 더 즐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신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어린 생명>은 ‘관리’를 안 해주면 제대로 크지 못한다.
2. <관리>는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하던 일’을 연속 진행하게 하기도 한다.
3. <관리>를 안 해 주면 ‘제 갈 길’로 가게 된다.
4. <성장된 자>는 ‘관리’를 해 주기보다 가르쳐서 ‘지도자’가 되게 해 줘야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관리와 가르침으로 ‘지도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몸’으로 삼고 지체같이 쓰며,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육신 일생 동안 지상에서, 영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신다.
6. <자기 관리>, <전도한 자 관리>, <따르는 자 관리>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일체 되는 관리>다.
7. <자기 관리>를 잘해야 ‘형제 관리’, ‘하늘 관리’를 잘 한다.
8. <만물>도 <사람>도 ‘관리해야 될 대상’은 관리해야 된다. 안 하면, 제 맘대로 된다.
9. <매일 관리하는 낙>이다.
10. 매일 <건강의 관리>, <기도의 관리>, <말씀 보는 관리>, <전도의 관리>다.
11. 매일 <운동>을 하고 보니, ‘근육’이 장난이 아니었다. 행하면, <신앙>도 ‘표’가 난다. 행하여라.

<2020년 2월 29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려 ‘생명의 말씀’을 주었건만,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인’을 치지 못했다.
2. <노아>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그로 인하여 <인 침을 받은 자들>은 심판 때 악인들 때문에 고통은 받았어도 죽지 않았다.
3.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와 <중심인물들>에게 모두 인 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며 ‘시대 구원역사’를 펴셨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메시아 예수님’에게 인 치시고, ‘그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도 인 치셨다.
5. <메시아>라면,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사탄’이 물러가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로써 메시아인지 알게 된다.
6. <메시아>는 ‘하나님의 몸’이다. 그 사상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그의 이름’을 대면 사탄과 귀신들도 알고 떠난다. ‘그의 이름’을 댔는데도 물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를 통해 심판하시기 때문에 ‘메시아의 이름’을 대면 ‘사탄’도 물러간다.

7. <메시아의 이름>을 대고 기도해 보면,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게 된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사탄’도 물러가고, ‘병’도 낫고, ‘원한 것’이 이루어진다.
8. <하나님>은 오직 ‘그가 보낸 구원의 사명자, 메시아’와만 함께하신다.
9. <절대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여 드러나게 하신다.
10.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자녀급 인’을 치시면, 종들은 그 주관권에 그냥 낄 수가 없다.
11.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신부급 인’을 치시면, 그 주관권에 자녀급은 한 명도 낄 수 없다.
12. 하나님이 <시대 보낸 메시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시대급 인을 맞은 자’다.
13. <인(印)>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해함’을 안 받는지 받는지 보면 된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
14.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나 종교의 교파>는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자들’이다.
15.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된다고 했다.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시대 계시’를 못 받아 방자하게 됨으로 심판받았다.
16. <하나님이 보낸 자>는 때마다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피하게 한다.
17. <하나님 심판의 때>에 보면, ‘심판 받는 자들의 수’에 상관없이 그들이 거짓됨을 알게 된다.
18. 어느 시대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거짓된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수는 많았다.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는다.
19. 때가 되면, <같은 족속들>이 순서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지난날 그 족속들을 심판하시고, 6년 만에 또 이 족속을 심판하신다. 같은 족속들이다.
20.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시 하며 보고, ‘이 시대’를 깨달아라.
21. <메시아>라면, ‘그가 시대에 예언한 것들’이 다 맞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가 예언한 것들’이 맞지 않다.

<2020년 3월 1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행해야 ‘하나님의 뜻’을 편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풀고 전하게 된다. 그러면 따르는 자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니, <언어의 혼잡>이 와서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말’이 안 통하고, ‘뜻’도 안 통하게 된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면, ‘자기 사상가’요, ‘독재주의자’다.
4.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부터 흠여지게 하신다.
5.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흠여져 버리게 하신다.

6.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언어의 혼잡’이 생긴다.
7. <언어가 안 맞는다는 말>은 ‘심정과 마음이 안 맞는다는 말’이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말’이다.
8.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언어와 일체 되지 않은 것들>은 다 허물어 버리신다.
9.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종교역사’를 창조하셨다. <구약역사>는 ‘모세를 통한 율법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신약역사>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새로운 성약역사>는 ‘이 시대 구원자를 통한 말씀’으로 따르는 자들을 행하게 하여 창조하셨다.
10.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 역사’도 ‘이상세계’도 창조하신다.
11. <말씀>대로 ‘종교’가 형성된다. 종교의 각 교파들을 보면 ‘말씀’이 다 다르다.
12. <그릇된 종교>는 ‘언어’가 처음과 나중에 다르고, 자꾸 바뀌니 따르는 자들이 혼동되어 한다. 그러다 결국 서로 틀렸다고 싸우면서 흩어진다.
13. <하나님과 말씀이 안 맞는 종교>는 결국 ‘언어 혼잡’으로 흩어진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음으로 인해 흩어 버리신다.
14.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말씀’을 주신다. 그러나 <구약인들>은 ‘신약 말씀’이 그들의 말씀과 다르니 따라오지 않고 옛 시대에 머물러 살았고, <신약인들>도 ‘이 시대 말씀’이 그들의 말씀과 다르니 안 따라왔다.
15. 하나님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종교>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스스로 흩어지게 하신다.
16. <같은 죄>는 ‘같은 형벌’을 받는다.
17.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 주관대로 독선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땅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육신>을 그릇되게 가르쳐 파괴시킨 자들은 괴롭게 하여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 깨닫고 바로 행할 때까지 기간을 정하시고 괴롭게 하신다.
18.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자기중심대로 행하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꼭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여 ‘그 죄값’을 받게 하신다.
19.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배우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인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잘못되게 한 자’는 때가 되면 기간을 정해 놓고 심판하여 괴롭게 하신다.
20. <직접 고통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그 주관권 안에 있는 자들>도 ‘지체’로서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
21. <하나님의 제1계명>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이다. 이 계명을 어기면 수천 대까지 자손 대대로 형벌을 받는다.
22. <인간을 신격화하여 모시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23.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다.
24.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죄’다. 어떤 자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심판받는 것’을 보면 안다.

25. <하나님의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뜻과 자기중심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로 죄를 범한 자다.
26.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아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이 시대 사명자도 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27.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그릇된 말이나 물질로 괴롭게 하는 자들>은 ‘시대 보낸 자’와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여 올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인지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 소돔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듯 행하신다.
28. <비정상>으로 하면 많이 한다. <정상>으로 하면 많이 못한다.
29. 수석을 모을 때도 <가짜 수석을 모으는 자>는 ‘수만 점’을 모으지만, <진짜 자연수석을 모으는 자>는 ‘몇 백 점’밖에 못 모은다.
30. <가짜>가 수만 개 있어도 <진짜 하나>만 못하다.
31. <결혼하는 남자>에게는 ‘마음에 드는 한 명의 예쁘고 젊은 여자’가 다른 수만 명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도 수가 적더라도 ‘진짜’가 필요하다.
32. <온전한 자 한 명>이 ‘온전치 않은 수십 만 명’보다 크다.
33.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자들 중에 ‘온전한 자 한 명’을 택하여 역사를 펴셨다. <모세 때>도 ‘모세 한 명’을 택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고, <노아 때>도 많은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노아 한 명’을 택하여 역사하셨고,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 한 명’을 택하여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 <요셉 때>도 형제들이 많았지만, ‘요셉 한 명’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고, <예수님 때>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자들 중에 ‘예수님 한 분’을 보내사 메시아로 삼고 새 역사를 시작하셨다.
34. 하나님은 <숫자>를 중심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온전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가>를 보신다.
3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온전한 자>를 통해 ‘시대 하나님의 뜻’을 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이루신다.
36. 노아 후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언어’를 혼돈케 하고 안 통하게 하여 다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셨다.
37. <이 시대에도 말세와 지구 종말을 그릇되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종교들>은 ‘시대의 바벨탑을 쌓는 종교들’이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 모두 무너뜨린다.
38. <어느 시대, 어느 종교>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한 순간’에 무너진다. 지진으로 심판하면 ‘단 몇 초’ 만에 심판이 끝난다.
39. 성경에는 <괴롭게 하는 심판의 기간>이 ‘5개월 동안’이라고 했다. <일반 심판의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로 한다.
40. 하나님은 <같은 죄>를 지으면 ‘같은 형벌’을 주신다. 지난날 <한 종교>가 민족에게 그리 고통을 주더니, 6년 만에 <또 다른 종교>에서 문제가 일어나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같은 신앙의 족속들’이다.

41. <속이는 자>와 <속는 자들> 모두 그 무지대로 ‘심판’을 받는다.
42. <비(非)진리>와 <비(非)원리>는 항상 ‘시대의 심판’을 받아왔다.
43.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온전하게 말씀해 주시고, <뉴스>를 통해 보여 주시는데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44. <단상의 말씀>을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로 깨닫고 귀하게 여기며 가슴에 뜨겁게 와 닿도록 느끼고 살아야 된다.
45. 하나님이 사전에 <민족세계의 환난>이나 <종교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어명’으로 알고 뼈저리게 깨닫고 행해야 하는데, 보통으로 생각하다가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섭리사 사람들이 성의 없이 행한다고 지적하셨다.
46.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깨닫는 자>는 ‘하나님과 일체 된 자들’이다. ‘하나님과 한 몸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시대 신부들’이다.
47. <시대 말씀>을 들어도 ‘방향’을 모르고, ‘누구를 두고 말하는지’ 모르면 흐리멍덩한 자들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4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말씀하신다. 말해 줘도 모르면, ‘신앙이 살아있지 못한 자’요, ‘삼위와 일체 되지 못한 자들’이다.
49. <지체>는 ‘머리’가 깨달으면, 같이 깨닫는다.
50. 하나님이 <주>를 통해 말씀하시면, 시대 신부들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깨닫고 행해야 된다.
51.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말씀하신 심정>을 제대로 깨달아야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도 축복해 주신다.
52. <큰 것>을 깨닫게 해 주시면, <구체적인 것>을 깨닫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53.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시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행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이 맞고, <말씀>이 맞아서 같이 살 수 있다.
2.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3. 하나님과 <생각>과 <말씀>이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언어>가 안 맞으면 같이 못 산다.
4.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같이 산다.
5.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된다.
6.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자>를 찾으신다.
7. <주>와 통하려면, ‘주의 말’을 배우고, ‘주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8. <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신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말’이 통하게 된다.

9. 주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 말씀을 배우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고 좋아하니, 믿고 따르며 같이 살게 된다.

10. <성경에 바벨탑을 쌓은 자들>은 하나님과 ‘말’이 안 통했다. 자기중심으로 행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끼리도 서로 ‘사상’이 안 맞고, ‘주장’이 달라서 말이 안 통하게 하셨다. 한쪽에서는 “성답을 쌓자.”고 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왜 힘들게 탑을 쌓아야 되냐.”고 했다. 서로 주장이 달라서 싸우다가 결국 흩어져 버렸다.

11.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버리신다.

12. 하나님과 <말>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면 흩어 버리신다.

13.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무너뜨리신다. 오늘날 <한국의 잘못된 종교들>도 병으로 쳐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행함을 이 나라, 저 나라에 다 알려 버리셨다.

14. 누구든지 <자기주장대로 행하고, 자기 명성만 떨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 각 개인 모두가 그러하다.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을 높이며 받들지 않고, <자기 이름을 높이며 자기 야망을 위하여 천하에 명성을 떨치고자 하는 자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지면에서 흩어 버리신다.

2.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으니, ‘그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 뜻대로 사는 자들’을 택하여 같이 살게 하신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마음 맞추며 같이 살 자’를 찾으신다.

4. 하나님은 <천지만물과 인생들>을 창조하시어 같이 호흡하며 사랑하며 사신다.

5. <자기 뜻과 자기중심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면 ‘마음’이 안 통해서 같이 살 수 없다.

6. <시날 평지에 사는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여 자기주장대로 성답을 쌓았다. 그들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 족속들’을 위해 성답을 하늘까지 쌓아 명성을 높이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여 ‘천륜에 벗어난 짓’을 하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한대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주장이 달라서 다투다가 지면에서 틀어지고 흩어지게 하셨다.

7.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말>은 서로 ‘주장’과 ‘생각’이 다르게 하여 다투고 싸우게 했다는 말이다.

8.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언어>와 <주장>이 같다가 ‘그 주장과 생각’이 달라져서 ‘말’이 다르게 되면,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 결과는 ‘흩어지는 것’이다. <바벨탑을 쌓던 자들>도 그러했다.

9.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목적’을 두고 행하면, ‘그들의 주장과 사고’를 다르게 하여 서로 맞지 않아 스스로 흩어지게 하신다.
10.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가 ‘가야 할 곳’에 가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과 ‘생각’과 ‘말’이 안 맞게 하여 거하던 곳에 있지 못하도록 틀어 행하시기도 한다.
11. <자기들만의 특별한 간판>을 내세우고, <사람 중심>으로 행하고, 모르는 자들을 ‘그들의 생각’으로 속이고 거짓되게 행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그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며 <이 시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관영되었으므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세상 모두에게 알리며 심판하신다.
12.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살려면, 본인이 간절히 원하고, 삼위가 바라시는 대로 스스로 노력하고, ‘삶의 대화’를 하며 행해야 된다.
13. <자기가 기다리는 자>를 잊지 않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잊지 않고 목적을 두고 쳐다보며 정말로 간절히 대화를 해야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도 <필요한 말>을 해야 되고, <필요한 말>을 듣기 위해 자꾸 ‘말’을 걸어야 된다.
15. 사람이 <말>을 안 해 버릇하면, ‘입’이 굳어서 안 하게 되고 ‘말문’이 닫혀서 안 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도 그러하다.
16.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서로 ‘마음과 생각’이 안 맞고 ‘말’이 안 통해서 쪼개지고 흩어진다.
17.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하여 흩어 버리신다.
1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서로 ‘말’이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같이 살게 하신다.
19. 창세로부터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명성을 높이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개인과 민족과 단체’를 그들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이 서로 어긋나게 하여 흩어 버리셨다.
20. 세상에서도 영계에 가셔도 <언어>와 <행위>대로 산다.
21. 하나님과 <진리>가 안 맞으면, ‘언어’가 안 맞아서 동행하며 살지 못한다.
22.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제대로 풀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과 의견’이 안 맞아서 ‘말’도 안 통하고, ‘구원’도 못 이루고 산다.
23. <말>이 안 통하면, ‘마음’도 ‘몸’도 멀어진다.
24.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타락했다. 하나님은 심정이 상하시어 끝내 말씀을 안 하시고, 1600년이 지나서야 ‘그 후손,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25. 때가 되어 <새 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새 시대 말씀’을 주신다.
26.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만 통하면 다 해 주신다.
27. 때마다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기도하는 것’을 들어 주신다.

28. <평소에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를 통해 말씀하시든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혼자 있을 때 만물로 계시하시든지 잘 깨닫고, 알아듣는다.

29. <언어>가 안 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다.

30.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다.

31. <언어>가 통해야 ‘목적’이 이루어진다.

<2020년 3월 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생명 관리>를 잊으면, ‘그 생명’이 죽는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에서 잊으면 ‘신앙’이 죽고, ‘영과 육’이 죽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

3. <전도하는 것>을 잊으면, ‘구원할 생명’을 사망으로 뺏기게 된다.

4. <만사의 어떤 것>이라도 잊으면, 죽는다.

5. <기도>를 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죽는다.

6. <말씀>을 잊으면, 행하지 못하니 죽는다.

7. <행하는 것>을 잊으면, ‘존재’를 못하니 죽는다.

8.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9.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생명권에서 사망권으로 죽는다.

10. 게으르면 <할 일>을 못하게 되니, <얻을 것>을 못 얻게 되어 ‘삶’이 죽어간다.

11. <세운 돌이 넘어가는 것>을 즉시 잡고, 세우지 않으면 넘어져버리듯, <생명들>도 그러하다.

12. <자기>가 ‘하나의 돌’이다. 자기라는 돌이 무너지는지 보아라.

13. <비바람>이 치면, 조금씩 넘어진다. <매일 관리>다. <매일 다스리기>다.

14.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매일 온전하게 행하기’다.

15. <머리>가 온전하게 행해도 <따르는 자>가 ‘자기 책임’을 다하며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서로 문제가 생긴다.

16.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니, <온전했던 자>도 ‘문제’가 생겨 변하게 된다.

17. <신앙생활>을 좋아하며 잘하다가도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잘하던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18. <어려움>은 ‘기도’하면 이기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주와 함께’ 하면 이긴다.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희망’을 이루어 주신다.

19. <생각>도 <마음>도 <행실>도 온전하게 하고 살면, <온전하신 하나님>과 일체 되어 자꾸 ‘더 큰 것’을 행하며 얻게 된다.
20. 절대적으로 행해야 <영원하신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권>에서 살게 된다.
21. <말씀>을 절대 믿고, 오직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생각>을 변치 않고 살기다.
22. <기도>하지 않으면, ‘막힌 방문’과 같다.
23. <기도로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컵에 더러운 물을 담아서 먹는 자’와 같다.
24. <회개하는 자>는 ‘컵에 있는 더러운 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을 담아서 마시는 자’와 같다.
25. <기도>해야 ‘육’으로 ‘영’으로 보여 주신다.
26. <다른 사람의 기도>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한 명의 기도>에 운명이 달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27.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사탄’이 깨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사탄’이 틈탄다.
28.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전체’를 살린다.
29. 매일 정해 놓고 기도다. 새벽 때, 점심 때, 저녁 때 정해 놓고 기도다.
30.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 시대의 판도가 뒤집어진다. <의인>이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 민족의 전쟁’을 없애 주신다. 그러나 <의인>이 괴롭고 속상해서 ‘환난’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신다.
31. <의인>을 건드리면, 잠잠하던 악인들이 ‘화평’을 깨고 ‘전쟁’을 일으켜도 내버려 두신다. 이 시대를 보고 깨달아라.
32. <하나님>은 ‘심판’에 동참하지 않으신다. <주>도 ‘심판’에 동참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과 주 때문에 지옥에 왔다고 영원히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시무시한 고통의 세계’에 스스로 가게 내버려 두신다.
33. <자녀>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도,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의 심정’을 바로 안다.
34. <신부시대>에는 누구보다도 ‘주의 마음’을 잘 알아 줘야 된다.
35. <심정>을 모르면 ‘사탄과 같은 입장’이 된다.
36.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입장’과 같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37.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며 구원역사를 펴지 못하게도 했고, 한 편으로는 제자들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막으며 온 인류를 위해서 죽지 못하게 하려고도 했다.
38. <심정을 아는 것>이 중하다. 하나님은 <시대 신부들>에게 까놓고 이야기해 주며 깨닫게 해 줬는데도 ‘간절한 마

음'이 없고, '심정'을 모른다고 지적하였다.

39. (하나님) <생각>이 '둘'이면 안 되느니라.

40. 하나님은 <생각이 둘인 사람들>을 헐어 버리신다.

41. <기성>은 '생각'이 둘이다.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무지의 생각>이다. 무지의 죄가 크다.

42. <무지>는 본인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인식관'이 뒤집어지면서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기성>은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서 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3월 6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하여 성령과 일체 되면, '할 일'이 너무도 많다.

2. 다짐하고 <못 한 것>을 다시 온전히 행하여라. 그러면 그 위치를 떠나 '차원 높은 곳'에 이르게 된다.

3. <분위기>가 좋고,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말아라.

4. <분위기>가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여라.

5. 아무리 <둘>이 좋아서 행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스스로 무너진다.

6. <깊은 기도>는 '깊은 문제'를 깨닫게 한다.

7. <기도>해야 '생각날 것'이 생각나게 된다.

8. <깊은 것>은 '겉'에서 잘 안 보인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야 보인다.

9. 하나님과 성령께만 맡기지 말고, 자기도 <자기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행할 일들>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서 해야 된다.

10. <자기 만들기>, <자기 책임 다하기>, <자기 스스로 행하기>다.

11. 다른 자들은 모르고 행하여 행할수록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알기에 얼마든지 행해도 행할수록 더 좋게 된다.

12. <자기>가 좋아해도 모르면 속게 된다.

13. <수석>도 자기가 '그 돌의 모양'을 좋아해도 진짜인지 모르면 좋아하며 속아서 사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14.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며 살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속아서 바람을 잡은 것'같이 허무하게 끝난다.

15. 사람이 <신앙생활>이 좋고, <하는 일>이 잘 되다가도 '자기 삶의 세계에서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러지?"하고 실망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며 <신앙>도 포기한다.

16. <육신의 것>이 잘 안 돼도 <신앙의 것 하나>라도 잘 되면, 그 신앙의 성공으로 인해 '육신의 안 된 것'까지 정녕

코 잘 된다. 이를 깨닫고 <신앙>을 버리지 말고, 신앙으로 ‘육신의 것’을 강하게 이기며 행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육신>이 잘 안 된다고 <신앙>까지 포기하여 ‘영과 육’ 둘 다 실패하고, ‘육신 일생, 영 영원히 실패한 자’가 됐다.

17. <육신의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실패했어도 <신앙>만 끝까지 성공하면, 때가 됐을 때 <육신의 것>도 잘 되어 ‘영과 육 두 가지’로 영원히 성공한다.

18. 사람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실망해 버리고, 주저앉게 된다. 10번, 20번 다시 해 보고, ‘방법’을 달리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도 해 봐야 된다.

19.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잘 되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경비’와 ‘수고’가 있어야 된다.

20. 그 일에 대하여 <경험>이 없을 때는 ‘착오’도 많다. 가령, ‘100%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경험이 없는 자>는 ‘70%’를 해 놓고 되기를 원하니 안 된다.

21.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잘 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성령님도 좋아하시는 일이나, 아니냐’에 따라서 <운명>이 더 좋거나, 나쁘게 좌우된다.

22.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한 길>을 찾고, <온전한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행하고 나서 ‘육’으로도 ‘영’으로도 후회가 없다.

23. <자기 주관>으로 행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주관>으로 행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책임져 주신다. 그러므로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행하여라.

24.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을 진정 ‘주인’이 되어 관리하여라.

25. <관리의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전화해 주는 관리’다. <2단계>는 ‘본인이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잡아 주고, 열심히 하라고 말해 주는 관리’다. <3단계 첨단 관리>는 ‘삶을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을 관리 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대로 살게 해 주는 관리’, ‘속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아예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는 관리’다.

26. <관리>는 ‘평생 해 주는 것’이다. <성장시키는 관리>, <가르치는 관리>, <사명을 주는 관리>, 그리고 사명 놓았을 때는 <삶의 관리>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하신다.

27. <조각가>가 조각을 다 해 놓았어도 ‘위치’를 정해 놓고, ‘절대 보호’하며 관리한다. <사람>도 그러하다.

28. <자기 관리를 못 하는 자>는 ‘생명 관리’도 못 한다.

29. <자기>가 ‘답’을 온전히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관리하는 생명들>에게 ‘답’을 주겠느냐.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은 <온전하게 행할 때>만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2. 온전하게 살다가도 보통으로 하면, 바로 <온전한 삶>을 못 살게 된다.

3. <온전하게 사는 길>을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아야 된다.

4. 어제까지 <관리>를 잘 했어도 오늘 <관리>를 안 해 주면, 바로 ‘표’가 나게 된다. ‘공백 없는 지속적인 관리’다.
5. <꽃나무 분재>와 <소나무 분재>도 물을 제때 주며 잘 관리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때’를 놓치고 물을 안 주면, 바로 죽어간다. <신앙의 사람>도 그러하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밤낮으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관리해 주신다. 이를 깨닫고 늘 생각하며 자기도 <자기 관리>를 책임지고 하여라.
7. <관리>하는 대로 크고, 잘 되고, 형통한다.
8. <자기 관리>를 해야 잘 되고, ‘육도 영’도 죽지 않는다.
9. <관리>를 잊으면, 그 순간의 기간에는 ‘죽은 삶을 사는 자’가 된다.
10. <자기 지능>대로 ‘자기’도 ‘남’도 관리한다. 배우고,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과 주의 뜻대로 관리하여라.
11. <제때 관리>다.
12. <진리>와 <사랑>으로 가르쳐 주고, 배워서 알고 살도록 관리해 주어라.
13. <그 순간에만 임시적인 도움을 주고, 잘해 주는 관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관리’다.
14. <위로해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좋아해 주고, 대접해 주는 관리>는 ‘기분 관리’다.
15.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어 ‘온전하게 살도록 돕는 관리’다.
16. 자기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가 ‘잡초’도 뽑아 주고, ‘온도’도 조절해 주고, ‘물’도 주고, ‘퇴비’도 해 주고, 소독해서 ‘해충’도 없애주다가 ‘곡식’을 거두어들이듯이, <자기 신앙 농사의 삶>도 자기가 매일 부지런하게 살아 나가야 된다.
17. 옛집을 헐고 <새집>을 짓고 살려면, 새집이 완성될 때까지 지어야 된다. 이같이 <신앙의 집>을 짓고 살려면, ‘인생 삶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된다.
18. <어린 사람>는 ‘큰일’을 못 한다. <신앙이 어린 자>도 그러하다.
19. <신앙생활을 한 지 3년이 안 된 자들>은 ‘신앙이 어린 자들’이다. <모르는 자들>은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 자’다.
20. <신앙의 차원>대로 관리하고, 대해 주고, 길러 주어라.
21. <다 큰 자>를 ‘어린 자’로 보고 관리하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어린 자>를 ‘다 큰 자’로 보고 관리해도 문제가 생기고, 관리가 안 된다.
22. <관리>를 잘 하려면, ‘관리할 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 이어서 <기도에 대한 잠언>을 전해 주겠습니다.
23. <깊은 기도>를 하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24. <기도>하면 영계에서 ‘자기 할 일’을 환상으로 보여 주기도 하시고, 꿈으로도 계시해 주신다.
25. 성령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감동을 주어 역사해 주신다.

26.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해 준 것>을 절실히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더 주시고, 더 함께 행하신다.
27.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들도록 온전히 행하면, 즉시 잘 되게 해 주신다.
28. <100% 온전하게 행함>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삶’이다.
29. <마음>도 닦고, <몸>도 닦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합당하게 쓰이도록 착하고 부드럽게 닦아라. <수석>도 ‘수마되어 잘 닦인 것’이 아주 비싸고, ‘강도’가 강하고, ‘모양’이 예쁘고, ‘희귀종’이고, ‘귀한 형상’일수록 비싸다. <사람>도 그러하다.
30. 배우고 알았으면, 고생돼도 행하여라.
31. 처음에는 좋아하다가도 <마음>이 변하면, ‘삼위’께도 ‘사람’에게도 등을 돌린다. <약한 마음>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
32. <비>가 내려서 대지에 흘러가다가도 ‘단단한 연못’이나 ‘폐인 돌’에 고이게 된다. <약한 마음>은 구멍이 나서 ‘받은 은혜’를 쉽게 흘려버린다.
33. <말씀>만 배우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 그릇을 잘 만들고 배우기’다. 그래야 ‘뇌’에 남는다.
34. <생각이 약한 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좋아하다가도 곧 놓쳐 버린다.
35. 하나님은 “네 머리를 굳게 해 주겠다.”고 하신 후에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36. <받은 은혜와 말씀과 사랑>을 뺏기고 다시 받으려면, ‘가중된 조건’을 세워야 된다.
37.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정상적인 삶>이다.
38. <하나님과 성령님>과 ‘생각’을 다르게 하면, ‘그 뜻’은 퍼지 않으신다.
39. <깊은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자기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2020년 3월 8일 주일 잠언>

1. <전도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 깨닫게 하신 말씀’이다. <전도서의 잠언>에는 ‘인생이 패하고 승리하는 원인’과 ‘인생을 사는 방법과 처세’에 대해 말씀했다.
2. <잠언>은 ‘지혜의 글’이다. 여러 번 깊이 읽어보아야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다. 비유를 들어 말하였기 때문이다.
3. <잠언>을 읽기만 하면, 마치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의 제목’만 읽는 것과 같다. ‘해석’을 해야 된다.
4.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했다. 이 한 구절을 각종으로 깨달으면, ‘한 권의 책’이 나온다.
5. <한 사람>이 홀로 수고하면 ‘하루의 품삯’을 얻고, <둘>이 같이 수고하면 ‘배의 품삯’을 얻는다.
6. <혼자> 생각하면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생각하지만, <둘>이 생각하면 ‘두 가지’나 ‘네 가지’를 생각한다.

7. 물건도 <혼자> 들면 ‘혼자 들 수 있는 만큼’만 들고, <둘>이 같이 들면 ‘배로 더 무거운 것’을 들게 된다.
8. 문제를 처리할 때도 <혼자>하면 ‘한 쪽 것’밖에 처리를 못하지만, <둘>이 하면 ‘두 군데의 것’을 처리하게 된다.
9. <홀로> 가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못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둘>이 가다가 다치면, 한 사람이 잡아주어 일으켜 주게 된다.
10. <홀로> 하다가 안 되면, ‘화’를 당하게 된다.
11. 어떤 일을 놓고 해결할 때 <한 겹줄>로 하면 약해서 끊어지고, <두 겹줄>은 단단해서 끊어지지 않는다.
12. <모든 존재의 세계>는 ‘상대성 원리의 세계’니라. 상대성 원리로 보아도 <겹줄>은 ‘배’로 강하다.
13. 항상 <겹줄>로 해야 당해내고 이긴다.
14.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둘>을 세울 때도 ‘앞, 뒤’ 두 군데를 받치면 견디어 내고, ‘옆’까지 세 군데를 받치면 넘어지지 않는다.
15. <전쟁>을 할 때도 ‘두 명씩’ 작전을 한다. <한 명>은 ‘수색’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숨어서 ‘총’을 겨누며 지킨다.
16. <비행기>도 ‘두 대씩’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보초>를 설 때도 ‘두 명씩’ 서야 완전하다. 더 완전하려면 ‘세 명씩’ 행하면 된다.
17. 말씀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두 겹줄’로 가르쳐 행하게 해야 된다. <구시대 말씀>은 보다 ‘육적 말씀’이고, <새 시대 말씀>은 보다 ‘영적 말씀’이다.
18. <구시대 말씀>과 <새 시대 말씀>으로 ‘두 겹줄’이다.
19. 성약 때는 <구약말씀>과 <신약말씀>과 <성약말씀>까지 ‘세 겹줄’이다. 고로 섭리역사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로 ‘구약과 신약과 이 시대의 것’까지 전해 주게 한다.
20.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 겹줄’이시다. 우리까지 일체 되면 ‘네 겹줄’이 된다. 고로 끊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21.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한 말>은 ‘구약말씀’과 ‘신약말씀’을 두고 한 말이고, 새 시대에는 ‘신약말씀’과 ‘이 시대 말씀’을 두고 한 말이다.
22. 전도를 할 때도 두 명이 상대 한 명을 두고 <한 명>은 ‘육적인 세례요한 격’으로 전초하고, <다른 한 명>은 ‘이 시대 새 복음’을 전해줘야 ‘두 겹줄’이 되어 성공한다.
23. 관리할 때도 두 명이 <한 명>은 대화하며 ‘상대편을 이해’하고, <다른 한 명>은 ‘복음’으로 이끌어 주어야 ‘두 겹줄’이 되어 성공한다.
24. <섭리사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안의 두 겹줄>은 ‘주’와 ‘증거자’다. 그리고 주 앞에 각 분야마다 ‘두 증인’이다.
25.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보다 완전하다.
26.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6000년, 그리고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직>을 구상하시고 역사를 펴셨다. 영적으로 말하

면, 하나님은 <보다 영적인 자>와 <보다 육적인 자> ‘두 명’을 사명자로 세우셨다. ‘이 둘’이 삼위와 하나 되어 행해야 승리하고, 상을 받게 된다.

27. 모든 만물들도 <주체>와 <상대>로 존재한다. 한 쪽은 <내적 기능>을 하고, 한 쪽은 <외적 기능>을 하며 ‘두 겹줄’로 존재한다.

28. <둘>이 제대로 일체 되지 않고 <하나>씩 행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기고 충격을 받게 된다. 반드시 <둘>이 하여라.

29. 세계에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 가지 균’이 일체 되어 공격하니, ‘두 겹줄’로 치료해야 된다.

30. <섭리사의 모든 현실의 문제들>도 ‘두 겹줄’, ‘세 겹줄’로 행해야 해결된다. <사명자 둘>이 일체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세 겹줄’로 행해야 된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과 심정>으로 뜨겁게 관리하여라.

2. 잘 키우고 잘 관리했어도 <악한 자에게 뺏기지 않게 하는 관리>를 해야 된다.

3. <이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성 죄를 지었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이다.

4. <죄>를 지었다면 회개시키고, 사탄이나 뺏은 자로 인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관리’해 줘야 된다.

5. <육신의 성공>은 한 기간 혹은 일생 동안 가지만,, 관리를 잘해서 <영혼의 성공, 신앙의 성공>을 하면 영원토록 누리고 살게 된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하여 ‘자기와 형제들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

6. <상대>를 제대로 알고 관리해 주지 않으면, 수고한 만큼 ‘효과’가 없다.

7. <말씀>을 온전히 알도록 가르쳐 주고, <말씀의 주인>이 되어 온전히 살도록 가르쳐 주고, 자기 몸의 때를 자기가 씻듯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여 해결하게 해 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활하게 해 주고, <주일 성수>를 하게 해 주고, <각종 환난>을 어떻게 대하며 이기는지 가르쳐 주어 지혜롭게 행하게 해 줘야 된다.

8. 환난 때는 근신하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내적 신앙의 삶’을 살다가 눈보라치는 겨울이 지나면 다시 행해야 된다.

9. 어떤 환난 때는 담대히 <진리>를 말해 주며 싸워 이겨야 된다.

10.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6000년 간 역사를 펴 오면서 ‘개인’과 ‘단체’와 ‘민족’이 환난 때 어떻게 행했는지 나온다. <성경>에 ‘답’이 많다.

11. 환난 때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냥 있지 않고 때마다 돕고 이야기 해 주니, 절대 ‘낙심’도 ‘포기’도 하지 말고, 끝까지 마음 변치 말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긴다.

12. <본인>이 포기하거나 마음이 변해버리면, ‘관리자’도 어려워한다. <전능자>는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도우니, 관리받는 <본인>도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앞으로 잘하게 된다. 고로 포기하지 말고 행하여라.

13. 신앙으로 졸다가 <환난>과 <자기 어려움의 일>이 닥치면, ‘마음’이 꺾여버리게 된다. <관리자>가 ‘마음’을 일으켜 주고, 잡아 주며 한 동안 옆에서 같이 살아 줘야 된다.

14. 저마다 지난날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사연들’을 듣고, 말해 주며 관리해 주어라.
15.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믿고 행하면, ‘절대 관리’가 된다.
16. <사탄과 마귀들>이 꺾어서 ‘마음’을 혼돈되게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귀와 귀신과 악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처리하시게 해 드려야 된다.
17. 환난 때 <사탄과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하니, 꼭 다스려야 된다.
18. 절대 <말씀>을 못 믿고, 절대 <주>를 안 믿으면, ‘사탄’도 ‘자기 주관’도 틈을 타서 ‘자기 마음’을 혼돈다.
19. 절대적으로 하면, <사탄>도 <인(人)사탄>도 <세상의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한다.
20. <영원한 영생의 길, 황금천국>을 가는데,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느냐.
21.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 평생 ‘목적한 곳’에 가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지>로 가지 않으면, ‘황금천국’에 가지 못한다.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환난과 핍박>은 ‘악인들’과 ‘사탄들’이 일으킨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시고, ‘사탄들’도 영원한 지옥에 넣고 가두신다.
2. <의인들을 괴롭힌 죄>가 최고로 크다.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여 지상에서 흠으신다.
3.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 위’에 강하게 역사하신다.
4. <죄질이 아주 나쁜 계획적인 악인들>은 ‘그들의 영’이 이미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에서 살면서 괴로워하며 ‘육신’을 통해 발악한다.
5. <의로운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은 ‘죄질’이 아주 나빴다. 긴긴 세월을 두고 ‘다윗’을 괴롭히며 핍박했다. 결국 <사울 왕>은 전쟁에서 패하여 세 아들을 잃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괴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영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다윗에게 행한 죄의 대가’를 받는다. <이 시대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도 그러하다.
6. <짐승>은 사람을 해하고 ‘악한 짓’을 하면, 즉시 잡아서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악한 짓’을 해도 즉시 죽이거나 심판하여 없애지 않으신다.
7. 성경을 보면,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도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한 기간’이 지나서야 전쟁에서 패하여 ‘이긴 자들의 손’에 죽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심판의 때’를 맞춰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윗이 그 기간에 온갖 고통을 당해보고 왕이 되게 하여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게 하신 뜻’도 있다.
8. 하나님은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 <악인을 따르는 자들>까지 모두 생각하시고 심판하시기에 악인을 즉시 멸하지 않기도 하신다.
9.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면, ‘스스로 돌이킬 기간’을 주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즉시 멸하지 않으신다.

10. 하나님은 <악인>이 ‘악’을 행하면, 죽기 전에 ‘악한 행위의 대가’를 받고, ‘괴로운 고통’을 받아야 하기에 그 몸을 즉시 멸하지 않기도 하신다.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면 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계속 행하면 그 행위대로 죽게 하신다.
11.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괴롭혔다가, 도리어 ‘본인’이 괴롭게 되어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
12. 메시아 예수님이 시대 십자가를 저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힌 자들>은 살아가면서 행위대로 ‘각종 고통’을 받았다. 그 후에 전쟁으로 온 민족이 괴로운 대가를 받기도 하고, 로마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죽기도 했다.
13.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육신 일생, 영 영원토록 ‘괴로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 육신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을 받아도 영은 ‘하나님의 품 안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된다.
14.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육신’도 고통 받고, ‘영’도, ‘혼’도 영원히 고통 받는다.
15. <선과 악>은 스스로 쪼개진다. 하나님 역시 <선과 악>을 영원히 쪼개시어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과만 영원히 함께 사신다.
16.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절대 선(善)’을 창조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善)’과만 함께하신다.
17. <악>을 행하기는 쉬워도 <의>를 행하기는 어렵다.
18. <의의 기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다.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의’다.
19. 세상에도 <의의 기준>이 있으나, ‘인간을 중심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의’로 보지 않으신다.
20.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다. ‘선’이다. ‘악을 벗어난 것’이다.
21. 하나님은 매일 <악을 행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22. <선>을 행해야 ‘자기 희망’이 이루어진다. ‘축복’을 받는다.
23. <주를 중심한 선(善)>이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선(善)’이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선(善)’이다.
24. 성경을 통해 보아도 <종교역사 6000년>은 ‘선악을 쪼개는 역사’였다. ‘선악 간의 싸움’이었다.
25. 하나님은 결국 <선한 사람>을 통해 ‘천지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천 년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
26. <악>에는 반드시 ‘사탄’이 함께한다. <악한 사람>은 결국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27. <말씀>을 어기면 ‘사탄’이 침범하게 된다.
28. <절대 말씀 순종>이다. 그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29. <하나님이 명하신 의를 행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
30. <거짓말을 하며 선을 악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31.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다. 그 말씀대로 된다.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귀한 존재물>이라도 귀하게 쓰면 ‘귀한 것’이 되지만, 귀하게 쓰지 않으면 ‘별 것’도 아니다.
2. 주께서 이미 말씀했는데도 또 말씀해 달라고 한다. <주의 말>이 ‘말씀’이다.
3. 모두 <주>를 만나고 ‘자기 희망’이 행한 대로 다 이뤄졌는데도 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4.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자’다.
5. 하나님도 <처음>에는 다 행하지 않으신다. 성장 중이라 ‘취급’을 안 하신다.
6. <나무>도 처음에는 ‘묘목’이다. 그 기간에는 ‘나무 취급’만 하지 ‘기둥 취급’은 안 한다.
7. <구약시대>는 ‘묘목 같은 시대’다. <구약>은 ‘처음 소생기’로써 그때는 하나님도 제대로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신약 때>는 시대가 성장하였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오셔서 행하셨고, ‘구약에서 기다렸던 역사’가 이루어졌다.
8.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뜻’을 다 펼칠 수 없었다. <시대>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이고, <구약에서 약속한 것>은 ‘신약의 메시아’를 보내어 이루시기 때문이다. 결국 <신약 때>가 돼서야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펼쳤다.
9. 어느 시대든지 <새 시대>가 와야 ‘메시아’를 보내어 ‘구시대에 약속한 뜻’을 이루어 주신다.
10. <새 시대>에 왔다가 다시 <구시대>로 돌아가면, 구시대에서 또 기다리고 간구하게 된다. <새 시대로 오기 전>에는 끝내 얻지를 못한다.
11. <구시대 사람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없다고 가르치고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보낸 구원자>를 통해 ‘그들을 새 시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모른다.
12. <구약에서 원한 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 원한 것과 약속한 것>은 ‘새 시대 메시아’를 보내어 이루어 주셨다.
13. 어느 시대든지 <구시대 신앙>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없다.
14.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시아를 보내어 <구시대에서 약속하신 대(大) 뜻>을 ‘새 시대 메시아의 몸’을 쓰고 펼쳐 나가신다.
15. <하나님의 역사>는 ‘소생기’와 ‘성장기’와 ‘완성기’로 되어 있다.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대로 행하듯이, 역사를 펴는 것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인 구약 때>는 아직 성장이 안 되어 ‘하나님의 근본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16. <구약에 약속된 뜻을 이루는 신약시대>가 왔어도 구약의 약속된 뜻만 이루었지 다시 ‘신약에서 약속한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었다. <신약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 시대 메시아’를 보내시어 <새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1차, 2차 성장하면서 ‘신약에 약속된 혼인잔치 역사’를 점진적으로 펴 나가셨다.
17. 전도하고, 성장시키고, 커져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大)역사>를 이루고, 천 년 동안 <성경에 약속된 혼인잔치 역사>를 펴게 된다.

<2020년 3월 1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께 <지혜>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때에 맞춰 할 일을 하는 것>이 지혜니라.” 하셨다.
2.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대하여 좋게 알수록 그것을 좋게 여기며 ‘마음’도 ‘생각’도 모두 빠지게 된다.
3. <수석>도 ‘좋은 것’을 알수록 더 좋아하며 좋은 돌에 빠지게 된다.
4. <공부>도 ‘가치’를 알수록 깊이 빠지게 된다.
5. 모르면, <관심>도 <상관>도 없게 된다.
6. 원망하고 짜증내면 <뇌신경>도 같이 ‘화’가 나 있어서 ‘좋은 생각’을 못하게 된다.
7.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아주 실패하고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더 ‘화’가 나고 ‘괴로운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더 잘 되게 해 주신다는 쪽>으로 깨달으면 ‘화’도 ‘복’으로 바뀌고, ‘분노’가 즉시 식는다.
8. <성령님과 매일 매시간 의논하고 이야기하며 그 감동대로, 말대로 사는 것>이 ‘최고 지혜’다.
9. <주의 말씀을 듣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함>이 ‘지혜’다.
10.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만물과 사람>을 ‘지혜’로 보고 대하지 않으면 ‘매일 손해’다.
1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 첨단의 지혜>로 만물도 사람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고로 <하나님 차원의 지혜>로 보고 대해야 제대로 보고, 가치도 알고, 유익하다.
12. <부지런히 행하며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지혜’다.
13. <지혜>란, ‘그 일의 최고 좋은 방법으로 행함’이다.
14. <자기만 알고 행해야 되는 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다.
15. <첨단의 지혜>는 세월이 오래가도 ‘말’을 안 하면 모른다.
16. <잘하는 것>이 ‘지혜’다.
17.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산다. <아는 자>를 중심해서 하여라.
18.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되어지는 것’을 보면 안다. 하나님은 <자기 것>은 틀어서 ‘자기 앞’으로 오게 행하신다.
19.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것이 되는 운’이 있으면 틀어져서 ‘자기에게로 오는 기회’가 생긴다.
20. <눈의 보이는 이치>는 ‘거울’과 같다.
21. <눈>이 ‘거울’이다. 비춰서 본다.
22. <거울>에 가져다 대면 모두 보이듯이, 그 이치로 ‘눈’을 창조하셨다.

23. <거울>이 흐리면 안 보이듯, <눈>도 흐리면 안 보인다.
24. <지혜>는 ‘근본의 이치’를 깨닫게 한다.
25. <지혜>는 ‘배우고,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이다.
26. <늘 자기 행위와 생각이 정상인지 확인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27. <분위기에 따라 분별없이 행함>은 ‘지혜’가 아니다.
28. <분위기>에 빠지지 말아라.
29. <처음>에는 모르고 해도 <후>에는 알게 된다.
30. 알고 행하면, <자신>이 있고 <전력>을 다해 하게 된다.
31. 높이 올라가라. 깊이 내려가라. 그래야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32. <미련함>이 무엇이냐. ‘모르는 것’이 미련한 것 아니냐.
33. <지혜자>는 ‘더 좋은 것’을 찾는다.
34.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는 ‘귀한 것’을 주신다.
35. <지혜>는 ‘제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와 함께하는 것’이다.
36. <좋은 것>을 알수록 ‘감탄과 감사’가 나오고,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
37. 사람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모른다.
38. <하는 것>과 <되는 것>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통인지 최고인지’ 알게 된다.
39. <좋은 사람>은 꺾어보면 안다.
40. <물건>도 ‘좋은 것’은 써보면 안다.
41. <금>은 언제라도 변치 않는다. <사람>도 ‘금 같은 자’는 그러하다.
42. 하나님은 <끝>까지 보시고, “좋다.” 혹은 “나쁘다.” 하신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뜻을 펴는 의인들을 괴롭히고 악평하고, 악을 행하며 거짓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너희는 낙심 말고 ‘선’을 행하여라.
2. <악을 행하여도 즉시 심판하여 죽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고, 어느 때는 ‘심판 날을 정하시고 그때까지 두었다가 행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니라.
3.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역사를 두고 악을 심판해 오신 것>을 보아라. 너희는 <하나님이 지난날 섭리역사와 세상에

행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4. 하나님은 <의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괴롭게 하여 심판하셨느니라. 사람에게 따라 3년 6개월 혹은 7년 혹은 10년 만에 ‘그 욕도 영도’ 사망으로 심판하셨나니, 이는 <악을 행한 자>가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죄의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니라.

5. <어떤 자가 사망에 처해 살다가 복음을 듣고 생명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육신’이 행하면, 즉시 ‘그 마음도 혼도 영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권으로 옮기게 됨이라. 이는 <육신>을 따라 ‘그 마음도 혼도 영도’ 행함이라.

6. <생명권>으로 나왔을지라도 ‘의로운 삶’을 산다고 그 즉시 ‘혼과 영’이 크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 나무가 크고 곡식이 크듯이 행위에 따라 점점 크는 것이니라.

7. 자기에 관하여 <꿈>으로나 <자연 만물>을 통해 보이며 깨우쳐 주나니, 분별하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비유한 것>을 깨달아라.

8. 모르면, <성령>께 묻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여라.

9. 기도를 하여도 <자기 의지>와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생각’에 일체 될 때까지 하여라. 그래야 제대로 보이고 깨닫게 되느니라.

10.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이 없어도 ‘기간’을 정해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라. <기도>는 ‘일’과 같나니, 큰일은 금방 끝나지 않아서 여러 번 해야 되듯이 기도도 그러하니라.

11.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때’를 맞춰서 뜻있게 해 주시나니, 진실로 기도하면 천사가 다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림이라.

12.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사명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나니, 누가 이를 알고 전해 주겠느냐. <하나님의 욕이 되어 전해 주는 자>도 하나님이 말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니라. 다만, 그는 ‘시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라.

13.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와 세상의 모든 자들>을 ‘선악 간’에 진실로 고해야 하느니라. 그래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 주시나니, <불의한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세상을 악하게 하는 자>와 <화평하지 않아서 세상을 싸우게 하는 자>와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여 화평케 해 주시니라.

14.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되나니, 매일 ‘선악 간’에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하여라.

<2020년 3월 1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한대로 행하신다.

2.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도 아무나 행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합당한 자>여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여야 된다.

3.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행하여도, 하나님이 틀어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 패하게 하신다.

4. 아얄론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여호수아 군대>와 <기브온 족속>이 하나 되어 ‘두 겹줄’로 싸우니, <가나안 땅의 다섯 왕>이 하나 되어 싸웠어도 패했다.

5.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들’에게 패하게 된다.
6. 이 시대에도 <그릇된 종교와 교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뜻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지역의 31명의 왕들’을 멸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섭리역사>가 다 이기고 멸하게 하신다.
7. 이 시대에도 31명의 왕과 같은 <30개의 그릇된 종교와 교파들>이 있었다. 결국 다 멸하고 <몇 개의 교파>만 남았는데,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어 ‘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8. <구약부터 지금까지 6000년 종교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외쳤고, ‘그릇된 종교의 교파들’과 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왔고, 결국 ‘하나님의 뜻, 생명의 역사’만 남아졌다.
9. 이 시대에도 <많은 종교의 교파들>이 서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깨지고 멸함을 받는다.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종교들>은 ‘심판’을 받고 흩어지고 있다.
10. <어떤 종교>가 잘못됐으면, ‘그 종교의 지도자’가 잘못되어 있다.
11.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니, <성령>과 <시대 보낸 자>가 그들을 흠어 실패하게 한다.
1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뜻’을 부정하게, 야비하게, 불의하게 펴지 않으신다. <공의>와 <화평>과 <의>와 <사랑>으로 펴신다.
13.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품을 착취하고, 자기 명예와 자기가 속한 단체의 명성을 높이려는 야망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육신’과 함께 행하지 않으신다.
14.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에게 <인격>과 <사랑>과 <공의>로 임하시어 ‘그 시대에 해당되는 뜻’을 펴신다.
15.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용하고 공의에 벗어난 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편다고 하는 자들>은 그 행위가 ‘불법’이니, 하나님이 지면에서 흠어 버리신다.
16.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진리가 맞는 역사>만을 이루어 오셨으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신다.

<2020년 3월 15일 주일 잠언>

1.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낳은 자’는 사랑하며 살아간다.
2. <진실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낳은 자’다. ‘그 정신과 사상과 행실’을 하나님이 낳았다.
3. <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4.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 인력으로서는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야만 사랑하게 된다.
5. 형제나 부모나 민족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낳은 자’가 아니다.
6.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 성의’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사랑하기 전부터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7.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6000년 동안 ‘세상의 만물들’과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로써 “하나님이 낳은 자다.”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할 수 있다.
8. <한 쪽>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둘>이 같이 사랑하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이루어진다.
9.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의 것’으로 보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것’으로 보신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보신다.
10. 하나님은 <각자>에게도 ‘사랑’을 해 주시지만,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 더욱 사랑해 주시며 ‘구원’을 시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11.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중심인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나타나시어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사랑의 존재자’라는 것을 보여 주며 역사하신다.
12. 하나님은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어 역사하시고, <왕들 시대>에는 ‘왕’을 세워 역사하시고, <메시아 시대>에는 ‘메시아’를 보내어 그를 통해 사랑하시며 축복도 주시고, 그와 함께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13.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서로 ‘화목’하게 해 주신다.
14.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만 ‘죄’를 사해 주신다. 고로 <메시아>만이 ‘죄를 사해 줄 권세가 있는 자’다.
15.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죄를 회개한 자들’만 용서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 주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16.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를 용서해 주신다.
17. 하나님께는 <돈>으로도, <물질>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안 통한다. 오직 <사랑함>으로 통한다.
18. <자기 명예와 권세를 높이고, 물질을 뜯어내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낳은 사랑의 자들’로 보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병과 각종 재난>으로 고통을 주어 무너져 버리고, 흩어져 버리게 정녕코 행하신다.
19.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과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계신다.
20.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21.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끝났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택하여 먼저 사랑하셨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서로 사랑함이 마땅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랑함으로 ‘저주’를 받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
22. 노아 시대 때도 <제 생각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양심 심판’을 받고 홍수에 쓸려 내려갔다.
23.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살던 소돔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고 끝내셨다. 거기서 보다 의롭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만 빼내어 살게 하셨다. <그 시대의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며 사니, 그 이후 후손들도 계속 축복해 주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셨다.

24.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신약역사 2000년 동안 ‘구원과 사랑과 화목의 역사’를 펴 오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 자신을 최고로 잘 아는 자>를 보내어 ‘구원역사’를 펴 나가신다. <중요> ◎ 오늘 말씀을 더 깊이 해 주겠습니다.

25. 세상의 <만물>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각종 보물들>에 대해서도 알수록 ‘귀함’을 깨닫고, ‘자기 것’으로 삼는다.

26. <아는 자>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살아간다.

27. 알려면, 배우고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행해야 된다.

28. <잘 된 자> 치고 ‘그 면에 대해 모르는 자’가 없다.

29. <잘 되고, 성공하고, 소원을 이룬 자들>을 보면, 모두 그 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전심을 다해 행해서 얻고 누리며 살아간다.

30. <모르는 자>는 실패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억울하게도 된다.

31. <천국>도 ‘아는 자’가 간다. <지옥>은 몰라서 가게 된다.

32. <세상>은 ‘아는 자의 것’이다.

33. <아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명예’도 ‘권세’도 ‘사명’도 얻고 행한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에 대해서도 ‘아는 자’가 승리하고, ‘복’을 받고 살게 된다.

34. <세상>에서는 배워야, 알고 행하여 얻고 누린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워도 ‘인간만큼’만 알게 되니, 제대로 모른다.

35. <인간의 머리로 아는 정도>로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알려주셔야 알게 된다.

36. 사람도 그 <장본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것’은 모른다. 하물며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해 알 수 있겠느냐.

37.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해야 그가 ‘자신’도 알게 해 주고, ‘하나님’도 알게 해 준다.

38. 신약 때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예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39.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들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았다.

40.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니, 예수님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종급을 벗어난 아들급의 새 역사’가 왔다는 것을 몰랐다.

41.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대 말씀’을 주어 구시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42.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43.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육’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고, ‘영’도 하늘천국으로 가게 한다.
44.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를 통해서만 ‘화목과 진리의 새 역사’를 행하셨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해야, 하나님 그를 통해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새 역사’를 펴 나가신다.
45. 하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 시대>에도 그러하다.
46. <이 시대 보낸 자>를 알고, 믿고, 사랑해야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어 ‘영원한 세계, 최고 황금 천국’에 간다.
47. 하나님은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신다. 고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48. <더 좋게, 더 알고 사랑하는 것>이다.
49.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50.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51. <사랑>하며 생각해야, ‘느낌’도 ‘예감’도 ‘계시’도 온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일체 된다.
2. <일체 되는 자>만이 ‘그의 마음’을 알게 된다.
3. <사랑하는 자>에게만 ‘깊은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
4.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녕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으신다.
5. 하나님은 <지구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최고로 사랑하시어 ‘자기 육의 몸’으로 일체 되게 하시사, ‘자신의 목적과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해 그 목적인 뜻을 펴 나가신다.
6.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므로 ‘사랑’과만 통하신다. 고로 <사랑>을 통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 마지막 천 년 역사 때는 ‘사랑을 통한 휴거’를 이루신다.
7. 천지창조 이후 에덴동산에서 종교역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랑의 뜻’을 펴 오셨다. <4000년 구약시대 때>는 따르는 자들을 ‘종급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고, <2000년 신약시대 때>는 ‘자녀급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고, <천 년 혼인잔치 때>는 ‘신부급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시며 사랑의 역사를 펴 나가신다.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장엄한 것>은 누가 언제 보아도 볼수록 놀란다.
2. <신비한 것>은 누가 언제 보아도 볼수록 신비하다.

3. <아름다운 것>은 누가 언제 보아도 볼수록 아름답다.
4. <웅장한 것>은 누가 언제 보아도 볼수록 웅장하다.
5.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것>은 누가 언제 보아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하다.
6.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 사연과 섭리하신 것>은 알수록 생각할수록 깊고도 오묘하고, 그 가치가 하늘까지 치솟는다.
7. <만물>도 <사람>도 깊이 볼수록 신비하고 오묘하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8. 저마다 <아는 대로> 따지고, 계산하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9. <많이 알고 실천하는 자>가 많이 얻고 누린다.
1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신비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어도 <마음>과 <생각>과 <듣고 보는 것>이 어린이 같으면 '보람'도 '가치'도 '아름다운 것'도 모르고 산다.
11. <전지전능하신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사람보다 높으시니, 수십억 만 배 더 느끼시고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12. <곤충이나 동물들이 만물을 보고 느끼는 것>보다 <사람이 만물을 보고 느끼는 것>이 수백 배 깊고 강하듯이,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고 느끼는 것과 인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의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
13.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같이 느끼고 좋아하며 살게 해 달라고 하니, 하나님은 <인간은 구조 자체>가 '인간만큼만 보고 기뻐하며 살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같이 보고 느끼며 살 수는 없다고 하셨다.
14.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차원의 것'을 보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차원 것'을 본다.
15. <육에 속한 단계>는 '만물의 계시' 혹은 '사람들'을 통해 혼적 차원으로 보고 깨닫는 단계다. <영에 속한 단계>에 서는 보아도 '영적 높은 차원'에서 보게 된다.
16. <영>에 속해서 보면, '영체의 급'대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
17. 보다 <영에 속한 차원>에서 보려면, 성령과 일체 되어 '신령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18. <실천하지 않는 자>는 '생각과 이념과 환상 속'에서만 살다 죽는다.
19. <실천>해야, '실체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20. <육>이 실천할 때, <영>도 '육'을 따라서 형상이 갖춰져 가며 변화된다.
21. <꿈>은 '실체 세계'가 아니다. <육>으로 이뤄져야 '실체 세계'다.
22. <희망>과 <생각>은 모두 '실체를 위해 행하는 것'이다.
23. <믿음>은 원하는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한다. 그 역시 언젠가는 <실천>해야 '실체'가 된다.

24.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실체의 세계’다.

25. <지옥의 세계>는 실체를 원해도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다.

26. <지옥>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생각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7. <성령님>은 ‘실체’이다. 고로 <성령>과 행하면 ‘실체’로 이루어진다.

28. <영몽>은 ‘실체’를 보여 주니, ‘실체’로 이루어진다.

29. <꿈>에 내 앞에 ‘아는 두 사람’이 있어서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 길이 여러 갈래가 나왔다. ‘이 길의 끝까지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겠지?’ 했는데, 복잡한 길이라 <앞에 가던 자>가 보이지 않아서 ‘어느 길’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길을 걸어오는 자에게 <앞에 가던 두 사람>이 어디로 갔냐고 물으니, ‘내가 가던 길’로 안 가고 ‘전혀 다른 길’로 갔다고 말해 줬다.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추측하고 가던 길>로 갔더라면, ‘헛일’을 할 뻔 했다. 그 길의 반까지 갔었는데, 더 가지 않음이 다행이었다. 이날 <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이전에 진행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 다시 물어보게 됐다. 역시 내가 생각하던 대로가 아니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내 생각대로 했으면 못 받을 뻔 했다.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시대 구원자’를 통해 사랑해 주신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핵심적인 큰 것>은 ‘메시아’나 ‘중심인물들’을 통해 해 주시고, <작은 것들>은 때에 따라 ‘개인’이 구하는 대로 혹은 필요한 대로 수시로 해 주신다.

3. <큰일>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큰일>은 ‘절대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4. <사랑>을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알아야’ 감사 감격하며 귀하게 여기고, 뇌와 마음에 감동도 느낌도 크게 받고, 보람 있게 기뻐하며 살게 된다.

5. <하나님은 신>이시라 존재하시고, 나타나셔도 ‘인간의 눈’으로는 못 본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미생물 같은 아주 작은 존재물>이 앞에 있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고, <공기나 바람>이 앞에 있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6.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의 작용’이나 ‘나뭇잎의 움직임’을 보고 알고 느낀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가 보낸 메시아의 행함’을 보고 알고 느끼게 된다.

7.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가 세운 메시아나 선지자나 왕들>이 행했을 때 ‘그 행함’을 보고 알게 되기도 하고, 둘째, 하나님이 <주>를 쓰고 ‘그 육으로 직접 행하심’을 보고 알게 되기도 한다.

8. <바람이 풍력계를 돌리는 것>을 보면, ‘바람의 작용’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가 보낸 메시아의 육신을 쓰고 직접 행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된다.

9. <메시아>는 ‘사람’이되, <그 행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를 제대로 알고 믿고 행하면 ‘그 가치와 감동과 축복들’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도 더 돕고 함께해 주신다.

10.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메시아의 육신을 쓰고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일인지 깨닫고, 그 터전 위에

‘말씀’도 듣고,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아야 된다.

11.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실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모세’를 주셨고,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주셨다. 그 위의 단계 역사인 <성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 이 시대 사명자’를 주셨다.

12.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신이 욕으로 쓰는 사명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13.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마다 보낸 사명자를 쓰고 말씀을 주어 시대의 구원을 시켜 주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주인이 종을 사랑하듯’이, <신약시대 때>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성약시대 때>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14.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시대 사명자>의 ‘욕’을 쓰고 말씀해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삼위의 사랑의 대상, 시대 신부’가 되게 해 주셨다. 그리고 <보낸 자의 욕신>을 통해 지옥에 갈 우리를 대신하여 ‘시대 십자가’를 지어 주심으로 ‘구원과 휴거’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휴거된 욕신>은 땅에서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고, <휴거된 영>은 ‘사랑의 대상으로 변화된 영들이 가는 황금천국’으로 갔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며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15. 하나님은 <6000년 종교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또 우리가 <섭리역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까지 3대에 걸쳐서 택하시고 도우셨다.

16. 하나님은 우리를 <조부모 때>부터 택하셨고, <부모 때>는 더 확실하게 사랑해 주시며 역사해 오셨다. 그러다 <당세 때>는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자기가 겪은 대로 돕고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수천, 수만 번을 사랑해 주시며 <각종 어려움과 생명의 위기>에서 살려 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 주시고, <가난과 각종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돕고 함께해 주심으로 ‘지금 이 같은 현실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

17.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그리고 <삼위와 주>를 변치 말고 사랑해야 된다.

18. <사랑>이 깨지면, ‘천국’도 깨진다.

19.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아야 더 ‘축복’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

20. <사랑>도 <휴거>도 차원을 높이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사사건건’을 알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해 주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을 받고 열심히 행하여 ‘생명이 있는 신앙’을 해야 된다.

21. 하나님이 <주>를 통해 매일 ‘각종 것들’을 돕고 행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주>가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행해 주신다.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할 일>을 조금만 해도 ‘일한 표’가 나고, 조금만 안 해도 ‘안 한 표’가 난다.

2. <사람을 중심한 모든 존재물>은 조금만 더 크고 아름다워도 ‘표’가 확 나고, 조금만 못해도 ‘표’가 확 난다.

3. 알아야, 아는 만큼 좋아한다.

4. 사람은 <아름다운 것>이나 <좋은 것>에는 ‘마음’도 ‘생각’도 쉽게 빠져버린다.
5.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처음에는 최고로 좋아하다가도, 오래 쓰면 ‘처음의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 버린다.
6. <귀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것>도 쓸수록, 볼수록, 사랑할수록 더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7. <사람을 중심한 세상의 보물이나 귀한 작품>은 좋고 아름다운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계’가 없으시기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며 대할수록 좋고 아름다움이 영원히 끝도 없으시다.
8. 보고 듣고 알고 행해야, 느끼고 사랑하며 좋아하게 된다.
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근본’을 알수록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다.
10. <만물>도 <사람>도 모르고 보면 보통이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알고 믿고 대하면 완전히 다르다.
11. <사람>도 <만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모르고 보고 대한다면, ‘유익’도 ‘기쁨’도 ‘희망’도 조금밖에 없다.
12. <제대로 알고 행하는 자>가 잘 되고 형통한다.
1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생각할 때, <뇌>에 ‘생각’과 ‘마음’과 ‘주관’이 세워지고 형성된다. 그 생각대로 행하면, <육신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 그로 인해 <영>도 형상이 형성되고, 그에 해당되는 대로 <영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실체 천국>이 건설된다. <영>은 ‘그 나라’에 가게 되고, <육>은 만들어진 ‘실체 세계’에서 살게 된다.
14.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작품>이든 <보석>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처음에 봤을 때는 그리 좋아한다. 귀하지 않아도 ‘처음 보는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다. 그러다 몇 번을 보고, 자주 보다 보면 ‘호기심’이 처음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
15.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에 더 ‘마음’이 가고, 귀하게 여기며 좋아하게 된다.
16. <사람의 눈과 마음>은 ‘저울’과 같다. 고로 <보고 느낀 것>을 저울질하여 바로 분별하고, 거기에 따라 좋아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게 된다.
17. <어떤 것에 비해도 최고로 좋고,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 있다면, 항상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다.
1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과 귀함’이 항상 변함도 없이 최첨단으로 여전하시다. 그러므로 삼위를 제대로 알고 대하면, 항상 만족하고 기쁘다.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반복)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아름다움과 신비함과 웅장함과 귀함’이 항상 변함도 없이 최첨단으로 여전하시다. 그러므로 삼위를 제대로 알고 대하면, 항상 만족하고 기쁘다.
2. 사람은 <자기보다 한 차원 위의 것>을 보든지 사랑하면 만족한다.

3. 사람은 <자기보다 차원이 낮은 것>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4.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래 존재자'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5. <물건>도 자기가 사 온 금액의 배 이상의 가치가 나간다면, '만족'도 '기쁨'도 배 이상이다. 가령, 사람이 백만 원을 주고 물건이나 보물을 사았는데, 그 가치가 금액의 10배, 100배, 1000배라고 하자. 그러면 '귀함'도 '만족'도 '기쁨'도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것이다.

6. <자기만 알아보고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며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타인이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 주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희망과 만족>도 있다.

7.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만 좋아서 만족하면, '자아도취'가 된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나 존재물>을 좋아하며 귀하게 여겨야 '자기'에게도 실제적이고, '보는 타인'도 동참하여 귀하게 여기게 된다. <중요>

8.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차원을 높이는데 절대적인 것>은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다. 그리고 '실천'이다.

9.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대마다 차원을 높이시며 '행할 말씀'을 주시고, 그 차원대로 사랑해 주셨다. <1차>로 아담과 하와, 신앙의 조상 때부터 '인간이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다가, 모세를 보내어 구약 4000년 동안 '종으로서 행할 율법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종급으로 사랑해 주셨다. 그러다 <2차>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차원을 높이시며 신약 2000년 동안 '자녀로서 행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자녀급으로 사랑해 주셨다. 마지막 <3차>로 새 시대 메시아를 보내어 차원을 높이시며 천 년 역사 동안 '신부로서 행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을 신부급으로 사랑해 주신다.

10.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말씀의 차원>을 높이시고, 이에 따라 사랑하며 섭리하셨다. <1차 육적 차원의 구약말씀>에서 <2차 혼적 차원의 신약말씀>으로, <3차 영적 차원의 성약말씀>으로 차원을 높이면서 역사해 오셨다.

11. <전능자 하나님>은 항상 '성장하는 것'에 따라 과거보다 차원을 높여서 섭리하신다. 그래야 완성을 시키고, '만족한 대상'을 만들기 때문이다.

12. <하나님이 과거에 사랑해 주신 것같이 현재에도 사랑해 주시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내다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13. 가령,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퇴비한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또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어릴 때부터 두고 사랑해 준 것은 '사랑'을 목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목적'이 있다.

14.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듯,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5.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100% 사랑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을 100% 사랑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랑해 주신다. 80%, 90% 사랑해서는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16. <사람>은 서로 80%, 90% 사랑해도 같이 살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신'이시라 70%, 80%, 90% 일부만 사랑해서는 '절대적인 뜻'을 펴지 못하신다.

17. <하나님을 일부만 사랑>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적인 세계, 황금천국'에 못 간다. '절대 사랑하는 애인 취급'을 못하기 때문이다.

18. 구약과 신약 때는 몰라도 성약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야 되기에 '하

나를 절대로 100% 사랑'해야 된다.

19. 자기를 <절대 사랑>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과 '사랑의 혼인잔치'를 천 년 동안 하게 된다.

20. <구시대 주관권 안>에 태어난 자는 긴 세월 동안 '구시대 주관권'에서 살아야 되기에 어쩔 수 없지만, <새 시대 전환기>에 태어나서 사는 자는 '구시대'를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억울한 자'가 된다.

21. 전환기 때 <자기가 최고로 행해야 될 일>은 '시대의 혜택을 받고 구시대를 벗어나는 것'이다.

22. <하나님의 새 역사가 와서 새롭게 뜻을 펴는데도 구시대 주관권을 못 벗어나는 자>는 마치 '종이나 속국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때가 왔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자'와 같다.

23. <이단>과 <잘못된 종교인들>은 '구원'도 없지만, 그들이 잘못되게 행한 대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24.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빠져서 만족하며 사는 이유>는 '그릇된 말을 믿기 때문'이다.

25. <속이는 것과 거짓된 것들>은 '열매를 위해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믿고 행해도 결국에는 크게 실망하게 되고, 그 욕도 영도 '무지의 대가'를 받게 된다.

26. 지도자가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릇되게 인도하기도 하고, 지도자 자체가 아예 몰라서 <자기>도 잘못되게 행하고, <따르는 자들>도 잘못되게 인도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도 교만함으로 듣지 않고 고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

27. <절대적>이라야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욕>도 <영>도 자기가 행한 대로 존재하게 되어 그 주관권에 처해 살게 된다. 하나님은 이같이 공의롭게 행한 대로 대해 주셨다.

28. <온전히 알고 사는 자의 가치와 복>은 '영원한 사랑의 세계'다.

29.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해야, 영원토록 잘 된다.

30. 모르면, <별 것도 아닌 것>에 '목숨'과 '희망'을 걸고 산다. 결국 '허무'와 '실패'와 '후회'로 끝나게 된다.

31. 모르면 죽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고생도 한없이 하게 된다.

32. <알 것을 아는 것>이 '돈'이다. '재산'이다. '보물'이다. '사랑덩이'다.

33. 세상은 <알고, 행하는 자의 것>이다.

34.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존재자'이시다. 성령으로 배워라. 행해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35.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짧은 시간에 다 받아낼 수가 없다. <개미>가 '산같이 많은 흙'을 조금씩 옮기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을 일생 동안 성장하면서 깨달으며 받아야 된다.

<2020년 3월 22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살아야 될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믿고 사랑하게도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도 하셨다.

2. 하나님은 <뜻이 있는 자>를 택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가 자기를 의롭고 온전하게 만들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8~3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뜻대로 부른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3.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이 뛰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만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영화롭게 하셨다.
4. 하나님은 성령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낸 자를 믿는 자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다. 또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더 의롭게 만드셨다.
5.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중심인물들>을 만들어서 쓰셨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고,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야 합당한 대로 쓰셨다.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그리하셨다.
6.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도 자신을 오랫동안 만들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귀하게 쓰셨다.
7.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하며 의롭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으로 쓰였다.
8. <요셉>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자신을 ‘신령한 자’로 만들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그 형제들에게도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9. <다윗>과 <솔로몬>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그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였다.
10.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택하시어 의롭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에 따라 만들고 가르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만민을 구원하는 데 쓰셨다.
11.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 중>에 ‘뜻이 있는 자’를 택하시어 그를 더 의롭게 만드신다. 그가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의롭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 세상 만사를 봐도, 만들지 않으면 아예 ‘존재’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개발할수록 ‘더 좋게’ 되고, ‘더 편하게’ 쓰고 살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물건>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사람>도 의롭게 만들어야 된다.
13. <100%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쓸 수 없다. <월명동>도 만들지 않았으면 귀하게 쓸 수 없었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올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도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된다.
14. 100% 온전하게 만들지 않고 쓰면, <쓰는 자>도 제대로 못 쓰고 불편하다.
15. <선생>도 처음부터 사명대로 쓰이지 않고, 먼저는 자신을 만드는 데 쓰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집중적으로 자신을 닦고 깎는 데 쓰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21~26절>을 읽으면서 “자기를 만들고 예비하라. 특히 청년의 때에 정욕을 피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말씀대로 세상 사랑을 피하고 이기며 산속에서 홀로 의롭게 만들었다. 또 <화평>하게 만들고, ‘혈기’와 ‘분노’와 ‘무지’ 등을 깨닫고 <온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믿게 만들고, <절대 진리>를 깨닫고 ‘절대 실천’하게 만들었다.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려움에 처해도 싸워 이기게 만들었다. 또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끝까지 해야 그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결실하여 얻게 되고 아예 손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하는 정신>을 만들었다.

16. <만들기 어려운 것>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담대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안 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기 위해 기도하여 ‘더 근본이 되는 말씀들’을 받아 계속해서 나를 만들었다. 예수님은 수시로 ‘꿈’이나 ‘기도 중’에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스스로 절실하게 깨닫고 행하게도 하셨다.

17. <자기 만들기>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알아야 된다.

18. <자기를 만든 자>가 ‘자기를 못 만든 자 쪽’을 보면, 답답하여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19.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자기 욕도 영도 그 뜻대로 만들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

20. 좋게 되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만들어라.

21. <자기>를 만들수록 더 가치 있게 되고, 하나님도 귀하게 쓰신다.

22. <자기>를 흠 없이 만들고 행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

23. <자기>를 만드는 대로 ‘황금 천국’에 간다.

24. <하나님의 주관권>은 ‘귀한 곳’이니, 그 주관권에서 살려면 ‘귀한 자’가 되어야 된다. <황금 천국> 역시 ‘귀한 곳’이다. 고로 <자기>를 그에 맞게 귀하게 만들어야 간다.

25. <하나님의 구상에 맞게 성령의 뜻대로 만들기>다. <자기 식>으로 만들면, ‘자기 주관권’에 갇혀서 산다.

26.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 <집>도, <건물>도 ‘어떤 자료’로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지었느냐’에 따라 ‘값’이 좌우된다.

27. <월명동 자연성전>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듯, <자기>를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어라.

28. 누구든지 만들면, 만들어진다.

29. <자기>를 만들어야 ‘더 차원 높은 구원과 휴거’가 이루어진다.

30. 만들기 힘들어도, 만들어야 된다. <기도로 만들 것>은 ‘기도’하여 신령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만들 것>은 ‘말씀’을 듣고 만들고, 또 <복음>을 전하며 만들고, 닦고, 깎고, 끊고, 뺄고 달리고 행하며 만들 때 아예 만들어야 된다.

31. <집>을 만들어 놓으면 ‘100년’씩 쓰고, <자기 육과 영>을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간다.

32. <성령>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33. (성령) <나 성령>도 <주>도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해야 ‘그 마음과 생각’이 자기에게 와 닿아 그와 같이 따라 행하게 되어 만들어진다.

34. (성령) <나 성령>도 <주>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정신과 마음’이 느껴온다. 고로 그를 따라 하게 되어 쉽게 만들어진다.

35. (성령) <나 성령>과 <주>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심정’이 온다. ‘그 심정’으로 행하면 만들어진다.

36. (성령) <내 심정>이 임하면, 쉽다.

37. (성령) <나 성령과 일체> 되면, 감동을 받고 '자기 몫'을 자동으로 행하게 된다.

38.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그 마음과 정신'을 받아야 '삼위와 주가 원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39. (성령) <생각>해야, '그 마음과 생각'이 자기와 일체 되어 '그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여지며 만들어진다.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자기 몸과 마음>은 자기가 아니 고치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끊기도 하며 잘 되게, 잘 하게 만들어라. <자기>를 파악해야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지 안다.

2. <타인>은 잘 모르니, <자기>가 절대 성령께 기도하고 만들어야 된다.

3. <하나님의 구상대로 만들기>다.

4. <자기>를 잘 만들었어도 <다른 자>와 안 맞을 때가 있다. 이는 '생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

5. 평생 동안 만들어도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많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핵>을 만들었으면, 다 만든 것이다.

6. <자기>를 잘 만들었어도 <다른 사람>과 '부딪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생각 차이'다. '방법론 차이'다.

7. <생각>은 '각각'이어도 <하나님의 뜻>은 같다.

8. 자꾸 삶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쓰기에 합당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도 기뻐서 대화하며 쓰시고, <주>도 기뻐하며 쓴다.

9. 만들어도 <흠이 없게, 더 좋게,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기>가 만드니, 할 수 있다.

10. <어떤 것>은 다 만들었어도 쓸 때 불편하기도 하다. '교정'하여라. 조금만 교정하면, 더 좋아진다.

11. <월명동 조경>에 '돌을 세워서 웅장하게만 만든 곳'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디딤돌을 이리 저리 놓으며 '성령폭포 쪽'도 만들고 '기도동산 쪽'도 만들었다. 결국 마음대로 다니게 만들어 놓으니, 아주 더 좋았다. 처음부터 사람이 잘 다니게 쌓으면, 웅장성이 없기도 한다. <웅장>하게 쌓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서 '두 가지'가 좋게 했다. 이와 같이 만들면 된다.

12. <성령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야 될 것>은 평소 삶 속에 깨닫고, 매일 대(大)작품을 만들듯이 기뻐하며 만들자.

13. 주일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의 구상>으로 <성령님의 마음>으로 만들자.

14. 안 만들고 가면 힘들고, '고생'을 더 하게 된다.

15.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쓰면 10배, 100배 기뻐하며 쉽게 살듯이, <자기>도 <모든 사람>도 그러하다.

16. 만들 때, <성령>께 기도하며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자.

17. <성격과 마음 만들기>가 ‘첫째’다. 그래야 <몸>도 <행동>도 쉽게 만들어진다.

18. <말>을 합당하게 잘하게 만들어야, 부딪치지 않는다.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말>을 들어보면 다 ‘옳은 말’ 같으나, 이치에 맞지 않으면 ‘실제로는 옳지 않은 말’이다.

2.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은 모두 ‘합당치 않은 말’이다.

3. 주장할 때는 <맞는 말> 같으나, 실재는 그렇지 않으니 ‘거짓된 말’이거나 ‘무지로 인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4.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온전한 말씀’이다.

5. 말한 대로 행하게 되고, 말한 대로 <마음>도 <생각>도 돌아간다.

6. <말>과 <실체>가 다르면, ‘거짓’이 된다.

7. <좋지도 않은데 좋게만 생각하는 자>는 ‘자기만의 주장에 빠져서 좋아하며 사는 자’다.

8.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 혼자 혹은 적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도 ‘실제’로 이루어지니, 육신 일생 동안, 영
영원토록 ‘유익’이요, ‘기쁨’이요, ‘사랑’이다.

9.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누가 받아 내겠느냐. <그가 보낸 자>가 아니면 ‘받아 낼 자’
가 없느니라.

10. <하나님과 성령님>은 ‘직접 말씀’하기도 하시고, ‘비유를 들어 만물로 깨닫게’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
기도 하신다.

11.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진다.

12.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이다.

13. <주의 행하심>이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1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의 몸’을 통해 말씀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신다.

15. 누구든지 <하나님과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자기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같이 실천해 주
신다. 개성대로 사명대로 대해 주신다.

16. <말>과 <행실>에 따라 ‘자기’가 만들어진다.

17. <생각>을 하지 않고 행하면, 생각대로 안 된다.

18. 잘해 줘야, <상대>도 잘해 준다.

19. <만물>도 <사람>도 대하는 대로 대해 준다.

20. 무엇이든지 만드는 대로 되어진다.
21. <순리를 거역하는 삶>은 '힘'이 들기도 하고, '손해'도 간다.
22. 어느 때는 <말>과 <심정>이 다르다. '말하는 자기 자신'과 '듣는 자'를 생각해서다.
23. <마음을 거스르지 않은 자>에게는 '속마음'을 말해 준다.
24. <마음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자기의 속 이야기'를 안 해 준다.
25. <사랑해 준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거스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26.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매일 온전하게 행하여라.
27.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혼자 살면, '대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다.
28. <천국>일지라도 혼자 산다면, '홀로 누리는 기쁨'만 있지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은 없다.
2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시지만, 홀로 있으면 '자신'만 기쁘고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과 사랑'이 없으시니, 137억년이 넘도록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수백만 년 동안 성장시키신 후, <종교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시대마다 중심인물이나 메시아를 보내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시며 '그 육신'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들'도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
30. 사람이 <여러 가지>로 행하면, 그로 인해 '여러 가지의 기쁨과 사랑'을 받게 된다.
31.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와 <가르침>과 <감사>와 <사랑>을 각각 온전히 행하는 대로 '기쁨'도 '소망'도 이루어진다.
32. 사람이 <꼭 할 말>과 <꼭 할 일>만 하고 산다면, '서산의 해'가 지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편히 쉬면서 산다.
33. <매일 꼭 할 일만 하고 사는 자>는 '일생을 길게 사는 자'다.
34. 하나님은 <네 자신>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자기 처세에 따라 각각 진실로 사랑해 주신다. 그러나 각자 '그 사랑을 받고 행하는 만큼' 운명이 달리 좌우된다.
35. <최고의 기쁨>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최고의 사랑'에서 온다.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함을 낙으로 삼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들린 음성)
2. <사랑하는 자>만이 '삼위일체'와 영원히 살 수 있느니라.
3. 하나님은 모두가 <천지만물>과 <사람>을 사랑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4.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써도 '근본'을 깨닫지 못한다.

5. <깨닫는다는 것>은 ‘근본을 느껴 아는 것’이다. 가령, <꿈을 꾸는 것>이 ‘생시’에 이루어지면, “아, 이것이구나!”하고 확실하게 알고 느끼듯이, 깨달으면 더 이상 없이 절실히 안다.
6. <어떤 꿈>은 이루어졌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도 한다.
7. <어떤 성경말씀>은 이미 때가 되어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기다리는 자’가 있다.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말씀>을 때가 되어 ‘메시아’를 보내어 이루어 주셨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고 살면서 기다린다.
9. 누구든지 <그 시대 보낸 자>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것으로 믿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
10. <하나님을 절대 믿던 유대종교인들>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도 ‘그 당시’에도 믿지 않고, ‘그 후손들’도 믿지 않고 2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
11. <무지>와 <인식>이 얼마나 무섭게 ‘운명’을 좌우하는지 깨달아라.
12. <예수님을 절대 믿던 신약인들>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그 사명’으로 시대 보낸 자가 왔어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니 아직도 기다린다. <무지>와 <인식>이 얼마나 무섭냐.
13.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같아서 점점 갈려 간다. <당세>에 믿지 않으면, ‘당세의 사람’과 ‘그 자손들’도 믿지 않게 되어 천 년이 가도 안 믿는다.
14. 그때 모르고 안 하면, 영원히 <인생 일>을 모르고 안 하게 된다.
15. <몰랐던 것, 바라던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크고, 보물같이 귀한지 깨달아야 된다.
16. <모르면> - ‘실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지옥 같은 고생’을 하게 되고, 애타우며 살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게 된다.
17. <아는 것>이 ‘보물’이다.
18. <아는 것>이 ‘성공’이다.
19. <아는 자>가 ‘최고자’가 된다.
20. <모르는 자>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면서 ‘자기 팔자’나 ‘운명’으로 안다.
21.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는 것>에는 ‘예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자기 운명’이나 ‘신의 뜻’으로 안다.
22.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알고 사는 자>가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을 받은 자’다.
23. <아는 자>는 자기는 많이 알고 행하면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 학교에서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 주고 많은 돈을 받는다.
24.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가르쳐 만들어 놓는다.

25. <지혜>는 ‘학문과 지식’보다 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혜를 알고 행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만든다. 그러므로 삶에서 얻고, 빛이 나고, 원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해 놓는다.
26.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모두 ‘3차원 안’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4차원’에 속해 있어서 ‘지혜’를 받고 행해 놓으면, 모두 놀라고 감격해 하며 ‘신의 지혜’라고 인정한다.
27. 성령께 <지혜>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물으니, “<설명 방법>에 따라서 ‘지혜로운 말’이 되거나 ‘지혜 없는 말’이 되고, <행하는 것>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거나 ‘지혜 없는 자’가 되나니, <설명도 행함도 잘하는 것>이 ‘지혜’니라.” 하셨다.
28. <지혜로운 자>는 ‘말하는 것’을 보면 안다. 또 ‘행하는 것’을 보면 안다.
29. <지혜>는 ‘방법’이다. <지혜로운 자>는 ‘무지한 자’와 ‘모르는 자들’과 달리 행한다.
30. <지혜>가 없으면 ‘손’으로 받을 갈고, <지혜>가 있으면 ‘소’와 ‘농기구’를 이용해 받을 간다.
31. <지혜자>는 처음에는 ‘자기’만 알고 행한다. 그리고 후에 <자기 길을 좋아하며 따라오는 자>에게만 어떻게 했는지 말해 준다.
32. <지혜>는 ‘둘 중에 좋은 쪽’을 제대로 판단한다.
33. <지혜>는 ‘귀한 보물’을 ‘적은 값’을 지불하고도 얻는다.
34. <지혜자>는 ‘타인’이 모르고, 반대하고, 비웃어도 그를 설득하기보다 홀로 행하고 나서 훗날에 좋아하며 쓴다. 그리고 <반대자>도 <흠을 잡던 자>도 모두 인정할 때, <따르는 자들>과 잔치하며 자신과 같이 행한 만큼 동참하게 한다.
35. <지혜자>는 얻으면서 ‘많은 오해와 미움’을 받으나 오히려 기뻐하나니, 그들이 자신같이 알고 얻을까 함이다.
36. <지혜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행한다. 고로 <차원>이 높아서 ‘그의 행함’을 보아도, ‘그의 글’을 보아도 모른다. <지혜>는 ‘깨닫는 것’이다.
37. <지혜자>가 밝히 말해 주지 않으면, 모른다.
38. <지혜자>와 같이 먹고, 같이 살아도 <지혜>는 ‘깨닫고 아는 것’이니 ‘말’을 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39. <미련하고 모르는 만인>보다 <지혜자 한 사람>이 나음은 ‘지혜’로 그 이상을 알고 이루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은 <좋은 환경>을 주면 좋은 만큼 ‘더 좋게’ 하지 않고, 좋은 만큼 ‘태만’해진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이 <환경>을 좋게 해 주신 만큼 더 좋아지도록 ‘마음과 행위의 허리끈’을 졸라매고 뛰고 달려라.
3.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몸부림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신>을 차리도록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환경’을 주기도 하신다.
4. <좋은 날, 좋은 때>에 더 정신 차리고 10배, 100배 잘하여라.

5. <어려움>이 없는 만큼, <환경>이 좋은 만큼 더 잘하여라.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좋게 해 준 만큼 더 잘하도록 기대하신다.
7.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더 좋은 생각>이 나서 더 잘하게 된다.
8. 범사에 <더 잘하려는 생각>을 해야, '더 차원 높은 생각'이 나서 더 잘하게 된다.
9. <정신>을 차리는 만큼 '생각'이 집중되고, <정신과 생각>을 집중하는 만큼 '몸'도 일체 되어 행하게 된다.
10. <시대>를 분별하고 행하여라. 지금은 <단체 시대>가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활동하는 시대>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자기가 서는 시대>다.
11. <개인>을 '존재시키고, 세우고, 만드는 시대'다.
12. <개인>을 잘 만들어야, <단체>도 잘 되고 성장한다.
13.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게 해 주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못 한 행위'대로 대하신다.
14. <종교 지도자들>도 '부모'와 같다.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를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게 해 줘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못 한 행위'대로 대하신다.
15. 성경에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했다. 결국 하나님이 '두 아들'을 치셨고, 그 충격으로 '본인'도 죽었다.
16.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되고, <지도자> 역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해야 된다. 이 시대 모두 그러하다.
17. 과거에나 현재에나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것>이 얼마나 큰지 절실하게 깨닫고, 감사하고, 성장하며 행하여라.
1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사랑하며 살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음'을 깨달아라.
19. 온전하면,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20. <기도의 맛>만 들이지 말고, 어떤 곳을 공사하여 만들듯이 <기도하여 자기를 만들기>다. 조금 기도하면, '조금 일한 자'와 같다.
21. <제때 회개하여 깨끗이 하기>다. 그래야 성령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신다.
22. <깊은 기도>를 하여라. <얕은 곳>에서는 '물'이 안 난다.
23. 속으로 <묵도기도>를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 내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24. 새벽마다 밤마다 특별히 기도를 해 줄 테니, 같이 기도하자. <자기 만들기 기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기도>, <생명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기도>, <행하는 기도>, <자기 어려움을 고하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이 속히 들어 주실 수 있게 하자. 개인과 가정과 섭리사 전체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하자.

25. 대장간에서 <도구>를 만들 때 ‘쇠’를 빨강게 달구어서 휘고 끊어서 만들듯이, <자기>도 ‘기도’로 뜨겁게 하여 만드는 것이다.
26. 저마다 <자기 모습을 고쳐서 만들기>다.
27. <기도를 안 하는 자>는 ‘기도를 잘 하는 자’로 만들어라.
28. <말씀>을 깊이 보게 만들어라. 절대 <신앙>을 지키도록 만들어라.
29. <사탄의 유혹, 인(人)사탄 유혹>을 받지 않게 만들어라. <사탄>은 ‘신앙이 죽은 자’를 통해 와서 문제를 일으키니, 기도해라.
30.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받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축복’하면, 받지 못한다
2. <자기 뜻>대로 만들면, ‘자기 뜻’대로 쓰다가 끝난다.
3.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알지 못하면, ‘삼위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자’다.
4.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 책임 분담’을 못 하게 된다.
5. <자기>를 만들면, ‘자기가 할 일’을 깨닫고 하게 된다.
6. 가령, <농기구>를 만들어 놓으니 쓰게 되듯이, <자기를 만든 자>는 ‘자기’를 만든 대로 귀하게 쓰게 된다.
7.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인생들>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된다.
8. <사도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와 같이 만들기 위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말씀’같이 각종으로 가르쳤고, 결국 ‘좋은 자’로 만들어서 바울 자신같이 썼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은 신약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자들에게 귀하게 쓰였다.
9.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읽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한다.
10. 무엇이든지 안 만들면, 아예 없다. 만들면, 즉시 존재하게 된다. <사람>도 만들면, 바로 온전하게 된다.
11. 하나님은 <육>과 <영>이 만들어진 대로 주신다.
12. <자기>에게는 ‘자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다. 하면, 만들어진다. 반드시 <하늘에 속한 것>은 ‘주와 함께 만들기’다.
1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상>은 전혀 다르다.
14. 자기는 <작은 것>을 잘 만들지만, <큰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15. <때>에 맞게 쓰려면, ‘때’에 맞게 만들어라.

16. 안 만들면, <자기>도 <하나님>도 <주>도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없다.

17. <만들어 본 자>만 안다.

18. 세상에 살면서 ‘자기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자기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당당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쓰임을 받은 자>는 ‘아주 크고도 큰 것을 만든 자’다. <구원>과 <영원한 세계>를 상속 받았기 때문이다.

19. <자기를 만들어 보아서 다른 자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20. <인간>은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차원’에 못 미친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과 주와 함께 만들기’다.

<2020년 3월 29일 주일 잠언>

1.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한 것이다. <성령이 간구한다는 말>은 ‘성령이 감동시키신다는 말’이다.

2.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서로 협조하고 하나 되어 행하게 된다는 말’이다.

3.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감동시키고 도우시니, 성령으로 행하면 서로 협조하고 하나 되어 행하게 된다.

4.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시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으로’ 분별하고 행해야 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육>은 평생 동안, <영>은 영원히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셨다.

5. <분별>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일’이다. <분별을 배우는 것>은 ‘최고의 도를 배우는 일’이다.

6. <분별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절대적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7.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감동을 주어 깨닫게 하신다.

8.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사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뜻’인지 알지 못해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답답해하며 알고 싶어 한다.

9.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로 인해 ‘육’도 ‘영’도 기쁨이 오고, ‘하는 일’이 잘 된다. 반면에 <자기 뜻>대로 행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기는 하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한다.

10.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것>은 갈수록 ‘후회’하게 되고, ‘표’가 나게 꺼려지고, ‘죄’가 되고, 안 될 것만 같아 ‘부담감’만 생긴다. 고로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11.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뜻>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12.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모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메시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보내셨다.

13. <자기 뜻>을 이루면, ‘자기 육신만 유익’이다. ‘영원한 영’까지 축복받지 못한다. <자기 뜻과 목적>을 이루면, ‘육신’만을 위해 살게 되고, 그로 인해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

14. <자기중심>과 <자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15.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뜻을 주신다. 생각해야 깨닫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강하게 주신다.

16. <좋은 생각>은 ‘맨 마지막’에 온다. 끝까지 기다리며 ‘성령과 주의 생각’대로 행해라.

17. <사람의 생각이 지난 후>에 ‘신의 생각’이 온다.

18. 하나님도 성령님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지> 지켜보신다. 자기가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좋은 뜻’을 깨닫게 해 주기도 하신다.

19.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되고 걱정될 때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 주기도 하시고, 주일말씀, 수요일말씀, 새벽말씀으로도 답을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들어야 된다.

20.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냐고 하면서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마음을 쏟아 기도했다.

21.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사탄’과 ‘악한 자들’은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더욱 함께 돕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해 주신다.

22.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면, ‘자기가 원하는 뜻’도 못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자기 희망’도 다 들어있다.

23.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황금천국’에 가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24.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뜻’을 세상에 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도 ‘축복’도 ‘하늘나라’도 상속받을 수가 없다.

25. <오직 하나님 성령님 뜻대로>다.

26.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 고로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뜻’을 배워야 된다.

27. <섭리사 안>에서 살아도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실상은 ‘섭리사 밖에 사는 자’와 같다.

28. <시대 말씀>을 듣고, <이 시대 보낸 자>를 믿고, <삼위일체>를 믿고 사는 자는 ‘섭리사 주관권에 사는 자’다.

29.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량대와 나침반>을 ‘자기 정신’과 ‘마음’과 ‘뇌’에 꽂아 놓고 살아야 된다.

30. <하나님의 뜻>은 마치 ‘암벽 바위를 타는 자의 생명 줄’과도 같으니, 꼭 움켜잡고 ‘정신 줄’을 잡고 살아야 된다.

31.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면, 우선은 편하지만 갈수록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되고, ‘희망’이 안개같이 사라진다. 그러나 고생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육 평생 동안 ‘좋은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희망’이 이루어진다.

32.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인생의 욕도 영도 성공한 자’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인생의 실패 길을 가면서 사는 자’다.
33. 너는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과 <자기 뜻대로 산 것>들이 얼마나 ‘하늘’과 ‘땅’같은 차이가 있었는지 따져보고, 계산해 보아라.
34.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시대 신부들>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삶의 낙이요, 기쁨이며 마땅한 일이다.
35.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며 살아야 하기에 힘들다.
36. <하나님이 자기에게 뜻을 주시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고 예비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보시고 ‘행할 뜻’을 주신다.
37.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는 자’요, ‘세상에 태어난 몸값을 한 자’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의 몸값>이 가장 비싸다.
38.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완전한 의인’이 되어라. ‘사랑의 신부’가 되어라.
39.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나와 있다. ‘하나님의 뜻 길’과 ‘세상과 자기를 중심한 길’이다. <아벨들>은 ‘하나님의 뜻 길’로 살았고, <가인들>은 ‘사람의 길’로 살았다.
40. <하나님의 뜻 길>은 ‘많은 자들이 갈 수 없는 좁은 길, 생명길’이고, <세상의 길>은 ‘많은 자들이 가는 넓은 길, 사망 길’이다.
41.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한 자>도 그 행위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자>도 그 행위대로 받는다.
42.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뤄야,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진다. <육신>은 ‘땅’에서 이루고, <영>은 ‘하늘’에서 이루고 살게 된다.
4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대로 해야 같이 산다.
44.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기도하고, 예비하고, 기다려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때가 되면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더 좋은 뜻’을 주기도 하신다.
45.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46.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크게 3가지’로 본다. 하나님은 크게 ‘3단계’로 차원을 높이며 뜻을 펴 오셨다. <1차> ‘구약 때 율법말씀을 중심하여 종급 사랑의 뜻을 펴는 역사’였고, <2차> ‘신약 때 예수님을 보내어 자녀권 사랑의 뜻을 펴는 역사’였고, <3차> ‘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천 년 동안 펴는 신부급 사랑의 역사’다.
47. 하나님은 <맨 마지막 뜻>을 위해 역사를 펴 오셨다. <가장 중요한 뜻>은 ‘맨 마지막 역사’에서 ‘사랑의 대상’을 두고 펴신다. 고로 <사랑의 근본>을 배워야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펴게 된다.
48.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49.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한다.
50.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야 ‘합당’하게 쓰신다.

51.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삼위와 일체’ 된다.
52.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이 ‘생명길’이다.
53. <하나님의 뜻>대로 해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응답’을 쉽게 받는다.
54. <우상을 섬기거나,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편다고 하는 자들>은 합당치 않으니, ‘바벨탑을 쌓는 자’같이 언어를 혼돈케 하여 지면에서 흠으신다.
55. 하나님은 종교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는 자들은 쫓아내셨다. <루시퍼>도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세우니, ‘상식이 없는 불순종자’라고 쫓아내셨다. <아담과 하와>도 ‘자기 사랑의 뜻’을 이루니, 에덴동산에서 쫓아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56.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언어를 서로 혼잡하게 하여 지면에서 흠으신다.
57.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고,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니 ‘책망’도 하고, ‘심판’도 하신다.
58.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요, ‘빛’이요, ‘선’이요, ‘구원’이요, ‘천국’이다. ‘화평’과 ‘자비로움’이요, ‘서로 돕고 하나 되는 것’이다.
59. <하나님의 뜻>은 ‘사망’을 벗어나게 한다.
60. <하나님의 뜻>만이 남아지고, ‘영원한 세계’를 이룬다.
61.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설됐다. 고로 ‘그 뜻대로 한 자들’만 산다.
62.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실체체’로 오셨다. <이 시대 주>도 그러하다.
63. <하나님의 뜻>은 알고 보면, ‘자기 진로’가 된다. ‘천주적 운명의 길’이요, ‘후회 없는 길’이다.
64.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찾으면, ‘진로 문제’가 해결된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계의 세계>도 ‘땅에서 역사를 펴고 이루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천국>도 ‘땅에서 역사를 펴는 만큼’ 차원을 두고 이루어간다.
3. <영계의 세계>는 ‘구약급 영계’, ‘신약급 영계’, ‘성약급 영계’로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4. <땅>에서 이루어져야 ‘영계’에서도 이루어진다. <육신의 행위>에 따라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달라지고, ‘혼과 영’이 형성되는 이치와 같다.
5. <육신이 죽은 후>에 영으로 더 행하여 ‘영’이 더 좋게 변화되고, ‘영의 세계’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 그러나 <근본의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진다.

6. <땅의 육신>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 영’이 사망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이 영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를 행함으로 변화되어 ‘더 좋은 영계’로 가게 된다.
7. 어떤 자는 <땅>에서 주를 통해 말씀을 듣고 ‘육’도 ‘영’도 만들어서 천국이나 황금천국으로 가고, 거기서 더 잘하여 ‘더 빛나는 영’이 되기도 한다.
8. 어떤 자는 <땅>에서 하나님도 주도 안 믿고 ‘자기 주관’으로 행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이 아예 사망으로 가기도 한다. 사망의 세계에서도 아예 ‘불신의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 전 사망의 영계’로 가기도 하고, ‘보다 선 쪽의 사망의 영계’로 가기도 하는데, 거기서 기회를 받아 <영>이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좋아져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땅에서 육신을 쓰고 믿는 기회의 때’보다 훨씬 어렵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믿고 사랑하며 구원 받기 제일 쉬운 곳>이 ‘이 세상 땅’이다. <영계>로 가면 더 믿기 어렵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10. <육계>에서는 ‘생각한 것’을 행하기 쉬워도 <영과 혼의 세계>에서는 ‘생각한 것’이 보다 잘 안 행해진다. 고로 <세상에서 기회를 놓친 영들>은 ‘자기 구원’이 어렵다.
11.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불의를 행하고, 구원을 상실하고 죽은 영>을 영계에서 만났다. 영계에 가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고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불신하듯 똑같이 불신하고 살고 있었다. 그 행실의 옷을 보니, ‘귀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세상에서 행하던 대로 ‘거역과 불순종의 행위’를 보였다.
12.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불신하는 자의 영>을 영계에서 보니, 100살이나 든 것처럼 늙어 보이고 메마른 영이 되어 원시인같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영>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 그 영은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자들의 영>과 마주치면 ‘자기 행위’와 ‘자기 모양과 모습’이 부끄러워서 피했다.
13. <자기 자신의 행위>대로 ‘영의 모습’이 형성된다.
14. <영계>에서 보면, ‘육계에서 보는 행위’보다 더 자세히, 강도 높게 보인다. <육계>에서 ‘작은 모순이나 티 하나’도 <영계>에서는 ‘거름더미’로도 보인다.
15. <육신의 생각과 행위>대로 ‘영의 형체’가 보인다.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혼도 영’도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 주신다. 실상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16. <꿈>으로 ‘혼계’도 많이 보는데, ‘그때의 육의 상황’에 따라 꿈을 꾸게 된다. 그러나 <육신>이 잘 하는데도 그 행위와 다르게 ‘지저분한 꿈’을 꿀 때가 있다. 이는 계시라기보다 ‘사몽(邪夢)’이다.
17. <꿈의 영계>에 가도 ‘어떤 곳을 가느냐’에 따라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다 깨끗하기도 한 것이다.
18. <사몽(邪夢)이나 심란한 꿈>은 ‘계시’가 아니다. 육신이 자기 전에 더 기도하고, 마음과 생각을 단정히 해 놓아야 된다.
19. 자기 전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자야 ‘좋은 꿈’을 꾸게 되고, ‘깨끗한 것’을 보게 된다.
20. <자기 전에 기도>, <자고 일어나서 기도>, <생활 속의 기도>다.
21. <육>이 많이 한 것 같아도 <영계>에서 보면 생각보다 ‘표’가 많이 안 난다. ‘영계의 차원과 기준’이 높기 때문이다. 고로 전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고, 완전히 해야 된다.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 멀리에 있다.
2. <하나님의 뜻>은 ‘알면’ 아주 가까이에 있다.
3. 매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찾고, 그 뜻을 향하여 달리자. <뜻>을 찾았으면, 행하기만 하면 된다.
4. <뜻>은 ‘발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찾는 자’가 얻고 누린다.
5.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세상에서 날아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6.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행해 보았기에, 여러 상황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쉽게 알게 된다.
7. <하나님의 뜻>이라도 지혜롭게 잘해야, 실패하지 않고 잘된다.
8. <하나님의 뜻>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인간의 책임 분담 여하에 따라 ‘예정되지 않은 뜻’을 더 주기도 하신다.
9.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더 좋은 뜻’을 주기도 하신다.
10.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뜻’을 주지 않으신다.
11.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행할 일들’이다.
12.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뜻 속>에 ‘인생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들어 있다.
13. 자기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한 뜻>을 세워 놓고 살아라. 이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4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일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현실’에 맞게 하게 된다.
2. <정신>을 예리하게 하고 <신경>을 써야, ‘육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떠오르고 더 감각 있게 하게 된다.
3. <정신>이 무디면,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
4. <하나님과 성령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자>라야 ‘그 뜻’을 빨리 깨닫는다.
5.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자 간구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생시같이 생각이 나며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징으로 보였다. 그로 인해 ‘뜻’을 깨달았다.
6. <자기>가 ‘뜻의 사람’이 되면, ‘뜻’과 같이 생활하니 어렵지가 않다.
7.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깨달았으니,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
8.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다.

9. <뜻>은 '생명'이다. '혼'이다.

10. <뜻>이 '핵'이다.

<2020년 4월 3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좋은 물건>일수록 세월이 갈수록 '값'이 뛰고 오른다.

2. <좋은 사람>도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발달된 만큼 알아주고, 따르고, '빛'이 난다.

3. <진리>는 끝까지 남아있기에 '태양'같이 빛이 난다.

4. <하나님은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세월이 가도 정녕코 이루어진다.

5. <영>은 '육신'보다 만 배, 억만 배 더 빠르고 총명하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땅'에서도 총명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나다.

6. <하나님과 일체 된 자의 영>은 더 총명하고, 지혜롭다.

7. <영으로 생각>하면, '아주 차원 높은 온전한 생각'을 한다.

8. <육의 생각>으로 하니, 너무도 모르고 행한다.

9. <불의를 행하는 자>는 '생각'이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판단하니 제대로 보지 못하고 행하여 늘 실패한다.

10. <하나님의 뜻>이 '선'과 '악'을 분리하여 존재시켰다.

11.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은 '길 자체'가 다르다.

12. <하나님>을 부르면, '대답'을 안 하셔도 들으신다. 그리고 합당하면, '마음'에 대답을 보내신다. 저마다 하나님을 불러 보아라.

13. <성령님>을 부르면, 금방 '대답'을 안 하실지라도 들으신다. 그리고 부름이 합당하고, 대답이 필요하면 바로 응답 하신다.

14. <성령님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행해야,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더 해 주신다.

15. 깨달지 못하면 안 통하니, <성령님>은 깨달을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16. <삼위일체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못 해 줄 것'이 없으시지만,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야 행하신다.

17. <성령>을 정말로, 진정으로 대해야 같이 행하신다.

18. <성령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돕지 않으신다. 도우면, 오히려 '딴 길'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은 모두 웅장하고 엄청난다.

2. 섭리사 지난 41년간 <하나님이 자기에게나 섭리사에 행하신 뜻>을 보아라.
3. 지난날 각자 <신앙>을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시고, <육신>도 어려운 데서 살리시고 도우셨다.
4. <신앙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기적'이 있었고, '광야 별판에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 기적'도 있었다.
5. <환난>과 <핍박>과 <자기 삶의 고통과 암흑>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인도하심은 그치지 않았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끝까지 인도하심으로 <애굽과 신광야 같은 삶>을 벗어나게 하여 '시대 가나안 복지'에서 살게 해 놓으셨다.
7. 매일 삼위와 주께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만 '이 시대에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8. <신앙>도 <열정의 마음>이 식으면, 다시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다. '할 때 행하는 것'이다.
9. <할 일을 두고 미루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10.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하고자 할 때>, 하게 되는 법이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다.
11. <하나님이 뜻을 두고 행하심>을 절대 믿어 드리고, 감격하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같이 장단 맞춰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여 올리는 신부가 되어라.
12.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해 놓으신 후>에, 보낸 자를 통해 그 행하심을 매일 증거하고 이야기해 주어 따르는 자들도 같이 감사 감격하고 사랑하며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13. <하나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었으면, '신부가 된 삶'을 살며 주와 같이 행해야 된다.
14.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명'이다.

<2020년 4월 5일 주일 잠언>

1. 사람들은 흔히 <감사>를 '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구원시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게 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 역사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게 해 주시는 등 <수천 가지로 돕고 축복해 주신 것의 대가>를 '돈'이나 '물질'로 드린다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감사의 대가를 해결할 자'가 없다.
2. <감사>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도 '심정'도 '육'도 '혼'도 '영'도 드림으로 날마다 '삼위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일'이다.
3.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축복의 대가'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끼리 혹은 <친구>나 <이웃>끼리 '감사할 일'이 있으면, '돈'도 주고 '선물'도 준다. 그러나 '돈과 물질'로는 감사를 다 못한다.
4. <돈과 물질>로도 감사하지만, <생각과 마음과 심정을 다해 평소에 잘 대해 주는 감사>가 훨씬 더 크다. 봉투를 하나 전해 주고 끝나는 감사는 '장사하는 식의 감사'다.
5. <사도바울>은 옥에 갇히고, 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했다.

6.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 될 때 감사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삼위와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셨다. 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이 영원토록 ‘하늘 황금천국’에 가서 살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또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죽음에서 구해서 살려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각종 수천 가지를 돕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로 인해 현재 ‘육신’도 살고 있고, ‘영’도 ‘삼위와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황금천국을 얻고 살고 있으니,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8. 사도바울은 신약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 다시 오시는 주를 맞을 희망’에 대해 이야기 해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이 시대 주를 맞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들>로서 ‘그 말씀의 실체 대상들’이다. 고로 날마다 <기쁨의 삶>, <기도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9.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다. 인생을 사는 동안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다.

10. <그때, 그 순간 감사>다.

11.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사람끼리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감사’와 다르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창조해 살게 하셨다. 그러므로 ‘자기가 책임을 못하여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늘 감사해야 된다.

12. 지난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죽음에서 살려 주지 않은 자>는 한 명도 없다. 살려 주지 않았다면 지금 ‘육신’도 죽어서 없을 것이고, ‘영’도 사망에 처해 죽어있을 것이다. <육>도 <영>도 살았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10번, 20번, 30번, 50번, 70번...수십 번, 수백 번씩 죽음에서 살려 주셨다. 그러나 ‘본인’은 잘 모른다. 가령, 차 사고가 나서 죽을 뻔 했는데 아무 사고 없이 깨끗이 살려 줬으면, 죽음에서 살았는지 잘 모른다.

14. 사람은 <죽음의 경지>에 처해 있다가 순간 피해서 살면, 그때 ‘죽음에서 산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예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평안한 길>로 가게 도와주신 것은 잘 모른다.

15. <본인이 죽음에 처했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 주신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몇 번을 살려 주셨는지’ 모르고 산다.

16. <전쟁터에서 수십 번 살려 주신 것>을 겪고 하나님과 성자께 감사하니, 하나님은 “지구 세상 모든 자들 중에 너같이 죽음에서 살려 주지 않은 자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몇 십 년도 안 가서 텅 빈 집이 된다.”고 하셨다.

17. <자기>도 모르게 ‘죽음’에서 살려 주셨으니 매일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섬기고 우러러보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야 된다.

18. 죽음에서 살려 줬으면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자 주 사랑>하며 ‘삼위의 것’이 되어 살고, <육>을 통해 <영>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 살아야 된다. 이같이 살게 하려고 살려 준 것이다.

19. 가령, 누가 <수천억 원어치의 선물>을 줬다고 하자. 그런데 ‘죽음’에서 살려 주지 못했다면, 쓰지도 못하고 죽으니

받으나 마나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물질>도 주시고, <생명>도 살려 주신다.

2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어 영이 영원히 살게 해 주시고, 육신도 각 종으로 돕고 살려 주시니 영원토록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주가 살려준 것을 모르고 사는 자>는 스스로 행하지 못하게 되어 '얻은 것'을 스스로 상실하게 된다. 지금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육신의 귀한 것'도 뺏기고, '영의 구원'도 상실하고 있다. 하나님도 돕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계신다.

21. 선생은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 주신 기억과 충격과 감격>이 그리도 컸다. 그 위에 '신앙'을 세워놓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수만 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전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 살려 주심으로 <생명의 구원역사>를 하게 하셨다.

22. <자기 육신과 영혼을 살려 주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영파'가 끊겨서 하나님도 '자기'를 생각에서 잊어버리게 된다. 그로 인해 <죽음의 처지>에 있을 때 '심정'이 안 통하니, 하나님도 자기를 구해 주실 수 없게 된다.

23. <영파가 안 통한다는 것>은 '심정이 안 통한다는 것'이다.

24. <죽음에서 살려 주신 것에 감사 감격>하면, 그 영파가 '하나님의 심정'에 와 닿는다. 그로 인해 또 다시 죽음에 처했을 때도 '마음'과 '심정'이 통하고 느껴지니, 알고 가서 돕고 함께하신다.

25. <감사 감격>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심정'을 느끼지 못하니, 그를 잊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감사하여라.

26.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소출>을 바치지 않으면, '자기 것'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신다.

27. 심지 않으면, 나지 않고 거두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진정 심어도 거두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심어라. 틀림없이 거두게 된다.

28.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마음 놓고' 심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함께 가꿔 주시고, 자기에게도 '지혜'를 주어 잘 되게 해 주신다.

29. <감사>를 심고, <사랑>을 심어라. <기도>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을 심어라. <진실한 선>을 심어라. 때가 되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30.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과 심정'을 심어라.

31. 하나님은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또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최고 것의 주인'이 되게 해 주신다.

32. <감사 생활>은 '마치 사랑하는 대상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과 같아서 '감사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 한다.

33. <감사의 반응>이다.

34. <감사>하니, '열리지 않던 문'이 열렸다.

35. 선생은 마치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루듯 '감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왔다. 이에 하나님은 '귀한 것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셨다.

36.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시대 신부들의 최고의 삶>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이다.

37. <감사>를 잊으면, ‘불만’이 온다.

38. <감사>하면, ‘기쁨’이 온다.

39. 받기만 하고 <감사>하지 않고 쓰면, 인색해지고 풍부해지지 않는다.

40.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에게 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라. <자기>만 ‘자기에게 해 주신 것’을 안다.

41.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문제가 풀리는 방법’이다.

<2020년 4월 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감사 생활의 삶>도 ‘운동’을 전문으로 배우듯 배워야,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된다.

2.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몸>을 다해 ‘하나님의 시대말씀’에 순종하고,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하며 멋있게, 아름답게, 뜻있게 살아가야 된다.

3. <알고 행하는 자>만이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게 된다.

4.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몸>이 항상 삼위일체가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서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5. <감사 생활>을 할수록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6.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7. <감사의 인봉된 말씀>을 알게 하였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감사하며 사는 자다.

8.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가 있지만 <감사>에는 ‘때’가 없다. 호흡하듯이 항상 ‘감사’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9. <생활 자체>가 ‘감사의 삶’이다.

10. <감사를 잊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신 기쁨도 희망도 잊고 사는 자’다.

11. <무엇>을 받을 때 ‘기쁨’이 오듯이, <감사>를 해야 자기에게 ‘기쁨’이 온다. ※ 성령님과의 대화

12. (성령님) <존재물>이나 <사람>을 볼 때 더 예쁘고 아름다우면 좋겠다고 아쉬워하기보다 ‘방향이 다른 곳’에서 보아라. <존재물을 보는 각도>에 따라 더 아름답고, 더 멋있게 ‘원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람>도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생겼어도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아쉽게 보이기도 하고, 보다 못하게 보이기도 한다.

13. (성령님) <수석>이나 <보석>이나 <조각>도 ‘각도와 방향’에 따라 아름답고 멋있는 형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14. <정원에 있던 수석의 형상>이 좋아서 방에 가져다 놓고 보니, 형상이 별로였다. ‘저 돌이 정원에 있을 때 착시로 좋아보였나?’하고 의아해 했다. 성령께 물으니, “정원에 있던 방향으로 놓고 보아야 그 형상으로 보이지 않겠냐.” 하셨다. 그대로 놓으니, 다시 ‘정원에서 보았던 형상’이 보였다. 성령님은 말씀하시길,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 생각보다 조금 못해도 아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도 <얼굴>도 <몸>도 360도로 돌려가면서 보아라.” 하셨다.

15. <내가 본 수석의 모양>은 ‘거북이 모양’이었다. 성령께 거북이의 목이 좀 두꺼워 아쉽다고 하니, “수석을 파낼 생각 말고, 실제로는 길게 되어있으니 <보는 것>을 제대로 보아라.”하시기에 목이 길게 보이는 쪽으로 가서 보았다. 옆으로 가서 보니, 충분히 ‘목을 길게 빼낸 거북이 형상’으로 보였다. 성령님은 “사람도 그러하니, 제대로 보아라.” 말씀하셨다.

16. (선생) <어떤 자>는 360도로 돌러가면서 보아도 ‘아쉬운 부분’이 만족하게 안 보입니다.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서 보아라. 그 역시도 <자기>를 만들어서 보아야 된다. <수석>은 만들면 ‘값’이 떨어져도 <사람>은 만들수록 ‘값’이 더 나간다.

17. (선생) <존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자기 생각대로 너무 좋게만 보면 ‘자기도취, 자기 흥분된 분위기’에서 보니, 자기에게만 좋게 보이지 다른 자에게는 좋게 안 보입니다.(성령님) 때로는 <자기만족하며 사는 것>도 자기에게 좋을 때가 있나니, 결국 ‘자기만족’, ‘자기유익’이 아니냐.

18. (선생) 성령도 나와 같이 사니, 나만 만족하고 기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성령님) 나 성령은 <사랑의 본체>라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본다. 모든 생명이 개성대로 아름답고 멋있고 예쁘게 보이니, 나는 걱정 말아라.

19. (선생) 성령님, <수석>이나 <자연석>은 오랫동안 수마되어 닳고 깎여서 각종 모양이 되기도 하지만, <조각한 것>같이 형상이 깊고, 높고, 넓적하고 선이 분명한 대(大)결작품 둘>은 아예 돌이 태어날 때부터 형상이 특별해야만 수마되어 닳아도 멋지게 닳아집니다. <사람>도 ‘특별한 자’는 아예 특별하게 태어나는 것이 맞나요? (성령님)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조 때>부터 ‘공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행위대로 역사하여 ‘그 자손’도 잘 타고 나기도 한다. <당세 때> ‘큰 자’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선조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뜻을 펴다가, ‘그 자손 중’에서도 뜻을 펴게 하기 위해 크게 타고나게도 한다.

20.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조를 따라 ‘믿음’을 타고 났고,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따라 ‘신앙심’을 타고 났다.

21. (선생) 성령님, 저는 사명으로 볼 때 <영>으로는 ‘예수님의 신앙의 자손’이지만, <육신>으로는 선조 때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산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성령님) <네 선조>가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월명동에 터전’을 잡게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듯, <네 선조>를 ‘월명동’으로 인도하셨단다.

22. (선생) 성령님,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50살이 넘어서부터 우리가 전도하여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돌아가셔서 전도를 못했는데, ‘그 영의 구원’이 어떻게 되나요? (성령님)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양심>이 ‘율법’이 되어 하나님을 시인했고, 또 ‘자손들의 공적’도 본다. <선조의 공적>도 보고, <자손의 공적>도 본다. <부모>를 보고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보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주>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도 가문’도 생각해 주신다.(선생) 그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망권으로 가지 않으셨나요?(성령님) 안 갔다. 하늘 주관권의 생명이니, 기도해 주어라.

<2020년 4월 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해 준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해 준 자>는 ‘기쁨’도 ‘보람’도 없다.
2. 도와주고 해 줬으면 반드시 <인사>도 <말>도 해야 하지만, 그로 인하여 늘 <대화>도 하고 친하게 살아야 된다.
3. 해 줬으니, 감사하며 기쁨으로 보람 있게 써야 된다.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다.
4. <감사할 것>을 연구하며 ‘해 준 것’을 잊지 않도록 귀하게 써야 되고, ‘해 준 자’를 증거하며 전해 줘야 된다.

5. 받고도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으면, 또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6. <감사의 생활>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과일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7. 성경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기뻐한 자들>은 심판하지 않으셨다.
8. <하나님이 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9.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몸’을 이끌어 내 주셨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더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금하셨다. 결국 ‘광야 별판’에 버려두셨고, 40년 동안 고생하며 살다가 죽었다.
10.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병’과 ‘기근’과 ‘가뭄’과 ‘지진’과 ‘태풍’과 ‘각종 자연 재해’를 많이 받았다.
11. <늘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12. <진정 감사하는 자>는 ‘여러 어려움’도 참고 견디고, 늘 감격하며 살아간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세상>에서 살면 어느 때는 ‘괴로워서’ 더 살고 싶지 않지만, <천국>에서 살면 더 살고 싶다. ‘항상 좋아서’다.
2. <천국>은 ‘생각’으로 갔다 오니, ‘순간’ 갔다 온다.
3. <안 본 것>은 ‘호기심’이 너무 많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다.
4. 본 자가 별 것도 아니라고 해도, <호기심>에 ‘마음’과 ‘생각’이 불타오르듯 한다.
5. <천국>은 ‘지상’보다 수억 배 좋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은데, ‘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적다. 이는 지능이 낮아서 ‘작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자기 두뇌에 맞기 때문이다.
6. <산을 오르는 자>는 ‘더 가면 어떻게 생겼을까?’ 하며 더 가고, <천연동굴에 들어가는 자>는 ‘갈수록 다르니 더 보고 싶다.’ 하며 더 들어간다.
7. 하나님은 <목적지>를 보여 주지 않으시고, ‘호기심에 불타서’ 가게 하신다.
8. <호기심> 때문에 보려고 ‘도전’을 한다.
9.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견디며 행한다. 희망을 이루면, 만지고 느끼고 보고 행해 보기 때문이다.
10. <앞으로 되어질 현실>은 ‘듣는 것’과는 다르다. ‘더 이상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앞날의 결과’를 보여 주지 않으신다.
11. <호기심의 뜻>을 이용하여, 꾸준히 열심히 식지 않고 행하는 것이다.
12. 그러나 <나쁜 호기심>은 ‘생각’도 ‘뇌’도 병들게 한다.
13. 자기 영이나 혼이 사탄에게 끌려가는데도 육이 둔하면 모른다. 고로 <나쁜 호기심>으로 ‘자기 생각’을 병들게 하지 말아라. 그 생각이 ‘육’을 둔하게 만든다.

14.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밀한 비밀’을 알려 주지 않으신다.

15.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신의 것이나 하늘나라에 속한 호기심>을 말해 주고 보여 주시는데, 마치 ‘신비한 천연동굴’에다 깨끗한 바닷가의 모래를 팍 채워 놓고, 자기가 파내는 만큼만 보게 허락하는 것과 같다. 만사에 이렇게 행하신다.

16.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역사>도 ‘역사가 가는 만큼’만 보여 주시고, 시대를 따라 ‘자기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만큼’만 보여 주며 오셨다.

17. 사람들은 ‘앞날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며 호기심을 갖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 보면서 알도록’ 뜻을 정하셨다.

18.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존재>와 <천국의 천사들>과 <천국의 각종 것들>도 배워야 알지만, ‘삼위의 대상’이 되는 만큼 알고 살게 하셨다.

19. 궁금하니, 더 하게 되고 기어이 가 보게 된다.

20. 인간은 알아도 다 모른다. 고로 안다고 말을 해도 답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21. 비유컨대, 한 여자가 모래사장의 모래에 묻혀 있다 하자. 개미 한 마리가 그 여자의 ‘손 쪽’을 파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발 쪽’을 파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귀 쪽’을 파고 있었다. 파는 대로 ‘손 모양, 발 모양, 귀 모양’이 각각 다르니, 개미들이 ‘하는 말’도 달랐다. <손을 판 개미>는 ‘손가락 형상’을 보고 “길다.” 하고, <발을 판 개미>는 ‘발 바닥 형상’을 보고 “납작하다.” 하고, <귀를 판 개미>는 ‘귓구멍’을 보고 “동굴 같다.” 했다. <하나님이 보낸 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각자 자기 위치’대로 주에 대해 알고 말한다. <하나님>만이 ‘전체’를 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인간은 개미같이 ‘일부분’만 안다. 고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는 말도 ‘부분’만 맞지, ‘전체’는 모르니 다 맞지 않다.

22. <종교역사>도 그러하다. 구약인들은 구약만 알고, 신약인들은 신약만 알고, 성약인들은 성약만 안다. <하나님>만 ‘전체’를 아신다.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감사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신다.

2.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역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감사하라고 하시고, <마른 자>를 살찌워 아름답고 건강하게 해 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기도도 대화도 하라고 하신다.

3. 농부가 정성스럽게 퇴비하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면서 ‘곡식들이 감사하라. 열매도 많이 맺어라.’ 하듯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4. 감사의 맛, 기쁨의 맛, 기도의 맛, 대화의 맛을 제대로 들이면, 이것을 떠나서는 무미해서 단 하루도 못산다.

5. 삼위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대화하면,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

6.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실컷 감사하라고 한다.

7. 엄마가 무엇을 사다 놓고 자녀에게 ‘너 엄마에게 감사해라.’ 한다. ‘왜?’ 하고 물으면, ‘이유는 묻지 말고 감사하고 싶으면 해라.’ 한다. 그리고 감사하면 사다 놓은 선물을 주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이러하시다.

8.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대화하며 살지 않으면, ‘화’를 잘 내게 되고 ‘성격’이 안 좋아진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대화하면 ‘화낼 일’이 없다.
10.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대화기도를 10가지씩 하고 살면, ‘감사 세계에서 사는 자’다. 매일 그날에 도와주신 것, 해 주신 것만 감사해도 10가지가 넘는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게 된다. 일체 되면, 늘 이렇게 살게 된다.
12. 같이 ‘일체 되어’ 살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한 몸 되어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나. 같이 살면 항상 도와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대화할 수밖에 없다.
14. <불가능한 일들>을 도와주시고 이루게 해 주셨으니, 감사해야 된다.
15.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은 ‘육’도 ‘영’도 병들지 않는 삶이다. 더 젊어지고 얼굴이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삶이다.
16. <영적인 자>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 수 있다. 영적이어야 ‘깊은 것’도 ‘얕은 것’도 생각나고 깨닫게 된다.

<2020년 4월 12일 주일 잠언>

1.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다. 어린 나이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너무 부족함을 깨달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합당한 것’을 구한다고 하시며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3000 잠언’을 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간 잘 다스렸다.
2. 솔로몬 자신도 ‘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백성들도 지혜롭게 가르쳐 주며 다스렸고, 전도서와 잠언서에 ‘지혜와 지식에 대한 말씀’을 많이 써 놓았다. 그중 잠언 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모든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며 ‘지혜와 명철을 얻고 사는 것’에 대해 말씀했다.
3. <이 시대의 지혜>는 ‘판단’이다. ‘분별’이다.
4. <지혜롭게 하는 것>이 ‘지혜’다.
5. <안 될 때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지혜’다.
6.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다.
7. 모르면, <아는 자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이 ‘지혜’다.
8. 자기는 이 시대 구원자가 아니니, <구원자를 찾아다니며 찾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다.

9.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지혜'다.
10. 많이 얻고 많이 거두려면, <삼위께 많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대화하는 것>이 '지혜'다.
11. <주>를 절대 시인하고 믿고, <말씀>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행하는 것이 '지혜'다.
12. <행할 때마다 자기도 노력하고 연구하며 삼위와 주께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13. <이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기에게 목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
14. <삼위일체와 주를 절대 사랑하는 자>가 '지혜자'다.
15. <말씀을 귀하게 알고 행하는 자>가 '지혜를 받은 자'다.
16. 어떤 일을 할 때도 <목적한 것 한 가지>만 보고 행하지 말고, 그로 인하여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보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17. <한 가지>만 보고 행하면 '문제'가 생기고, 다치고, 죽기도 한다.
18. <지혜가 없는 자>는 '미련한 자'다.
19. <주를 돕는 자>도 '그때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신경 쓰며 깨닫고 하는 것'이 지혜다.
20. <주의 말을 자기 생각보다 더 크게 여기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21. <자기 생각>을 중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 생각을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다.
22. <자기 무지>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방법을 좇아 행함>이 '지혜'다.
23. <미리 예비하고 방지하는 것>이 '지혜'다.
24. <악평하고 불신하는 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그들의 글이나 말을 절대 듣거나 보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러나 그리 하는 자는 '죄인'이요, '그들과 같은 악평자'가 되어 영도 육도 사망권에 처해 영원히 살게 된다.
25. <말씀>을 가까이, <삼위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의 구상대로 하는 것>이 '지혜'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작품'이 된다.
27. <완전하게 확인하고 하는 것>이 '지혜'다.
28. <전화로 사기 치거나 만나서 사기 치는 자들>을 늘 잊지 말고 깨어 있어 판단하고 확인하고 끊는 것이 '지혜'다.
29. <혼자 묻지 않고 행하다가 손해가 가고 나서야 물어보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가 없는 자'다.
30. <때를 지켜 행하는 자>가 '지혜자'다.
31. <부지런한 자>가 '지혜자'다.

32. <물건을 파는 자의 말이나 분위기에 빠져서 사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33. <물건을 살 때, 다 확인하고 알아보고 사는 것>이 ‘지혜’다.
34.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자>가 ‘지혜자’다.
35. <자기가 듣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인식대로 행하는 자>를 보고 믿어주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가 없는 자’다.
36. <새도 시장에서 우는 것을 보고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많이 깎아준다고 좋아하며 사 온 새가 울지도 않으면, 그제야 ‘이래서 싸게 줬구나.’ 하고 후회한다. 만사가 그러하다.
37. <성령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게 틀고, 자기 희망이 깨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행하는 자>는 ‘최고 지혜로운 자’다.
38. <자기 일이나 섭리사의 일들을 날마다 차원 높여 행하는 자>는 ‘최첨단으로 지혜로운 자’다.
39. <스스로 조심하는 자>가 ‘지혜를 받은 자’다.
40. <건강을 생명시하며 신경 쓰고, 미리 대처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
41. <지혜>는 ‘자기 생명’도 지켜주고, 더 오래 살게 해 주고, 다른 자보다 늙지 않게 해 주고, 영광스럽게 해 주고, ‘면류관’이 되어 주며 자기를 지켜 준다.
42. <지혜를 얻은 자>가 꼭 얻어야 될 것이 있으니, ‘명철’이다.
43. 사전(辭典)에는 <명철>이 ‘사리에 밝다.’ 라는 뜻으로 나온다. 이런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철>을 제대로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다. 성령님께 <명철>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성경 잠언에 명철에 대해 나와 있으니, 보자.” 하셨다. <잠언 1~9장>까지 읽어보니 ‘명철’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나왔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했다. <세상의 명철>은 ‘사물의 이치에 밝다.’ 함이다. 그러나 <명철의 근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44. <명철의 근본>은 ‘모든 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아니, ‘이 시대 창조 목적’을 알게 됐고, ‘황금천국의 인봉’을 땀다. <삼위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되니, ‘명철한 자’가 됐다.
45.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못 쓴다. 또 <명철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제대로 모르고, ‘주’도 모른다. 그러므로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된다.

<2020년 4월 1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모시고 사는 것’이다. <명철>은 ‘전지전능하신 삼위를 아는 것’이다.
2. <지혜>는 ‘먼저 할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한다.
3. <지혜>는 행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야 문제도 안 생기고 최고 이상적으로 할지’ 생각하며 먼저 계획하고 한다.
4. <지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과 행한다.

5. <주를 알고 일체 되어 행함>이 '지혜'다.
6. <모든 존재물을 제대로 알고 대함>이 '지혜'다.
7.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께 맡기고, 시키는 대로 주와 행함>이 '지혜'다.
8. <지혜자>는 때를 위해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9. <지혜자>는 사람과 먼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과 의논한 후에 그 다음 일을 사람들과 의논한다.
10. <지혜자와 명철한 자>는 모든 만물들이 '근본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삼위께 감사하며 얻도록 구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세상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권으로 사랑하며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행하는 자>가 '지혜자'요, '명철한 자'다.
12. <지혜자와 명철한 자>는 '빨리 할 일'은 빨리하고, '천천히 할 일'은 천천히 한다.
13. <지혜자>는 '형식'으로 행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실체로 모시고 같이 산다.
14. <지혜자와 명철한 자>는 '자기 할 일', '자기 책임'을 알고 자기가 행한다.
15. <지혜자>는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는다.
16. <지혜자>는 늘 '생각'을 놀리지 않고 생각한다.
17. <지혜자>는 '자기 뇌의 한계'를 알고 기록하여 잊지 않게 꺼내본다.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에게 '줄 것'을 주신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주인 삼고 '지혜롭게 쓰기 때문'이다.
2. <지혜롭고 명철한 자>는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자기 몸과 같이 잊지 않고 사랑하며 '제일'로 '최우선'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받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간구하고 대화하며 같이 살아간다.
3.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집>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신 귀한 것들'이 가득하다.
4. <지혜>는 '관리'다. '하나님의 것, 성령님의 것'으로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 주며 귀하게 쓴다.
5. <지혜자>는 '제 시간'에 하니, 일이 제대로 된다.
6. <지혜자>는 좋아하고 기뻐하며 행하니, 미루지 않고 스스로 행한다.
7. <지혜자>는 '해당되는 일'을 두고 늘 깨어있다.
8. <지혜자>는 '전능자'와 같이 행한다.

9. <지혜자>는 ‘자기의 가는 길’을 막으면, ‘다른 자’를 통해 행하여 정녕코 뜻을 이루고 얻고 간다.

10. <지혜의 길>은 많고도 많다. <지혜>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기 때문이다. ‘삼위가 보낸 자’는 지혜의 길로 간다. 고로 ‘그를 따라 행함’이 지혜다.

11. <미련한 자>는 오해하고, ‘제 갈 길’로 간다. 가다가 사자도 만나고, 뱀도 만나니, ‘지혜자가 가던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12. <사망의 길>은 ‘미련한 자’가 간다. <미련한 자>는 ‘지혜자가 가는 길’이 어떠한지 모른다. 가봐야만 알기 때문이다.

13. <미련한 자>는 사람을 ‘모순된 각도’에서만 보고 판단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좋은 각도’에서 제대로 보고 판단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께 ‘신의 피부결’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고 싶다고 했다. <지혜>로 생각해 보니, 행여 만져보라고 허락하셔도 ‘내 손’이 신같이 부드러워지 못해서 ‘신의 몸’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야 그나마 조금 느껴서 알 수 있다.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암기>보다 <기록>이 ‘지혜’다. <암기한 것>은 때에 따라 잊어버리지만, <기록해 놓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은 ‘지혜자’가 아니면 받지 못한다.

3.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아니면, ‘최고의 지혜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

4. <지혜자>는 ‘없던 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할 때 ‘해당되는 모든 일’을 같이 한다.

5. 어떤 것은 <지혜자>가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6. <미련한 자>는 ‘지혜자의 의견’을 ‘무지한 생각’이라고 하며 믿어주지 않는다.

7. <미련한 자>는 ‘지혜자가 하는 일’을 미련하다고 보지만, 해 놓고 보면 ‘자기의 생각’이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8. <삼위가 주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면, 그것이 ‘최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9. 지혜롭게 행하면, ‘좋은 자리’도 얻고 ‘좋은 정자’도 얻고 ‘비경’도 얻는다. <어렸을 때 놀고 마시던 샘물>이 없어졌는데, ‘지혜’가 다시 찾게 해 주어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지난날의 사연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귀하게 쓰게 했다. <지혜>는 이같이 ‘잃어버린 소원의 꿈’을 이루게 해 준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이를 ‘주’를 통해 행하신다.

10. <지혜로운 자>는 ‘해야 될 일’만 한다. <미련한 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희망으로 한다.

11. <지혜와 지식>이 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서 배워서 알고, <하늘의 지혜>는 하늘에서 받아서 안다.

12.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이다. 주는 ‘그 깊은 지혜’를 찾아낸다.

13. <지혜자>와 같이 일을 하며 보고 들어도 ‘사연’은 모른다. 일을 다 해 놓고 ‘그 사연’을 말해 주면, 그제야 안다.
14. <지혜로운 자>는 시작할 때부터 다르게 한다.
15. <지혜로운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이다.
16. <지혜로운 자>는 ‘최고 좋은 것’을 골라서 힘들어도 끝까지 하고 만다. 그러므로 보는 자들이 그 ‘행한 것’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칭찬한다.
17. <지혜>와 <명철>도 ‘행하는 사람’에 따라 최고 차원, 그 다음 차원, 그 이하 차원으로 나뉜다.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일의 지혜>는 ‘그 일’을 하면서 얻는다.
2. 한번 자리 잡고 살면, 살기가 어려워도 ‘자리 잡은 곳’을 뜨기 어렵다. ‘삶의 터전’이 닦아져서다. <위치>가 그리도 중요하다. <지혜>는 ‘제 위치’를 찾아서 산다.
3. <신앙>도 한번 자리 잡고 살면, 바꾸기 어렵다. ‘주가 신앙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해 준 것’이 그리도 크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지혜자’요,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뺏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4. 항상 <한 가지>는 정말 좋은데, ‘다른 한 가지’가 안 좋다. 안 좋은 것 때문에 좋은 것을 버리기보다, 힘들더라도 ‘안 좋은 것을 몸부림쳐 좋게 만드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명철한 방법이다.
5. <지혜자>는 ‘안 좋은 한 가지’를 지혜로 해결한다.
6. <아주 좋은 쪽>을 택하면, 상대적 반응으로 인해 ‘극히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안 좋은 것을 몸부림쳐 해결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면 좋은 쪽을 핵으로 택했기에 ‘최고 걸작’을 이룬다.
7. <좋은 쪽>이 ‘보통’이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도 ‘보통’이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을 해결해도 전체를 봤을 때 보통으로 이루어진다.
8.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 지혜를 실천>하려면 ‘산을 몇 개나 넘는 힘든 일들’을 해결해야 된다. 어떤 것은 ‘산을 몇 개나 옮기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얻는다.
9. <지혜로운 자>만 지혜로운 것을 알고 끝내 실천한다. ‘끝장을 내는 자’가 지혜자다.
10. <못 사 올 나무를 사 오는 것까지>가 ‘지혜’라면,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가 ‘명철’이다. <나무>를 보면, 사람의 앞뒤가 있듯이 반드시 ‘앞뒤’가 있다. 꼭 앞뒤를 잘 보고 심어야 된다. 어떤 나무는 <기둥>을 보면 앞쪽이 분명하다가도 <가지의 수형>을 보면 다른 데가 앞쪽 같다. 이때는 ‘나무의 기둥’을 핵으로 방향을 잡고, ‘가지의 수형’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틀어서 잡아 줘야 된다.
11. <방향>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심어야, 평생을 봐도 후회가 없다. <어떤 자>는 앞에서 보아야 더 멋있고 아름답고, 어떤 자는 뒤에서 보아야 더 멋있고 아름답다. 이와 같이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명철>은 이것이니, ‘방향과 각도를 잡는 것’이다. ‘어디에서 보든지 멋지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정확하게 심는 것이다.
12.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쓰지 않으면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

13. <주신 자에게 기도하며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지혜자’다.

14. <달라는 기도>보다 <해 드린다는 기도>가 더 빨리 상달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드리고 기도해야, 인정하시고 ‘줄 것’을 잘 주신다.

15. <기도해야 될 일>을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한다.

16. <기도>는 ‘자기 능력을 쓰는 일’이다.

17. <기도해야 주는 것>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

18. <기도>는 ‘만 가지 일’을 해결해 준다.

19. <자기 스스로 못 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면, ‘해 주는 자’가 나타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를 통해 하게 해 주신다.

20. <기도>해야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21. <사탄>은 기도하는 기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탄에게 묶인 자’다.

22. <기도 기간>에 ‘섭리사 전체’가 기도하니, 할 때 같이 하자. 그래야 힘들지 않는다.

23.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사탄과 마귀와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그로 인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잠언>

1. <자기 몸>도 <만물>도 <환경>도 매일 귀하게 써라.

2.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도 <환경>도 귀하게 쓰지 못하여 ‘심판’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지 않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귀하게 쓰지 못해서 쫓겨났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살면서 그 환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자기’도 ‘환경’도 귀하게 쓸 수 있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자기’도 ‘환경’도 귀하게 못 쓰고 심판받고 끝났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에 살던 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최고 발달된 땅에 살면서 ‘자기’도 ‘환경’도 하나님과 같이 귀하게 쓰지 못하여 심판받고 끝났다.

3.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된 땅에서 ‘그 환경’도 귀하게 쓰고, ‘자신들’도 귀하게 쓰며 지혜로 통일왕국을 이룩했다.

4. 구약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외치셨어도 듣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귀하게 쓰지 않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귀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

5. 신약 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 주셨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과 ‘자신’을 귀하게 못 쓰고 나아가니, 결국 로마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도 망하고 말았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자기>를 귀하게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6.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땅과 환경’을 만들어 귀하게 쓰게 하시고,

‘자기’도 귀하게 쓰게 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자기 몸>도,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귀하게 쓰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

7.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과 만물들>을 그 구상대로 개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귀하게 쓰고,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귀하게 써야 된다.

8. 사람들은 없을 때 달라고 하여 주면, 처음에는 <받은 것>을 귀하게 쓴다. 그러다 시간이 갈수록 귀하게 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편’을 겪는다. 받은 것을 귀하게 쓰면, ‘불편’을 겪지 않는다.

9. <자기 몸과 마음>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성령의 감동대로 쓰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다. 귀하게 쓰지 않으니, ‘병’도 나고, ‘몸’도 약해진다.

10.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없을 때는 있는 자를 부러워하며 ‘나도 있으면 저들보다 10배나 더 쓰겠다.’ 하고 몸부림쳐 얻고서 처음에는 무리할 정도로 쓰며 좋아한다. 그러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도 환경도 귀하게 쓰는 것>을 잊고, 받은 환경도 자기 달란트도 일부만 쓰며 불편하게 산다. 이것이 ‘사람의 폐단’이다. ‘지혜롭지 않은 미련한 삶’이다.

11. 예수님 때 <4000년 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면 하늘로 치솟게 뛰고 달린다고 했던 유대종교인들>도 막상 메시아가 오니, 무지로 배척하고 오히려 원수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중에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메시아를 만나고 하늘에 닿도록 사랑하고 좋아하며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만 했지 그같이 살지 못했다.

12.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쓰지 않으면, ‘책망’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

13. <주>를 귀하게 써야 된다. 주를 머리 삼고 귀하게 쓰지 않는 자는 <자기 주관>으로 빠져서 ‘환경 심판’과 ‘자기 심판’을 받게 된다.

14. <주>는 ‘머리’요,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 <주>를 귀하게 쓰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게 되고, 머리와 몸이 ‘고생’을 하게 된다.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다.

15. <하나님이 보낸 자>를 귀하게 써야, ‘걸던 자’가 뛰게 되고 ‘뛰던 자’가 날게 되고 생활이 부활되어 살아난다. 개인도 민족도 그러하다.

16.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며 ‘그’를 몸으로 삼고 역사를 펴신다. 그는 따르는 자들 앞에 ‘머리’가 되어 행한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어 ‘지혜와 명철’로 행하게 하신다.

17. <주>가 그냥 놓아두면, 온 세상 모두 ‘주가 생각하는 것’을 아예 생각도 못 한다.

18. 지난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귀하게 쓰고, <자기 몸>도 매일 삼위와 주와 함께 귀하게 써야 된다. 그래야 육도 혼도 영도 건강해진다.

19. <받은 것>을 귀하게 써야 10배 100배 더 얻고, 더 보람되고, 더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되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알게 된다.

20. <삼위가 주신 것을 더 귀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니, ‘차원 높여서 쓸 곳’이 너무 많았다.

21. <자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더 크게 좌우된다. 하나님이 주신 개성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도 ‘자기’도 매일 귀하게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써야 된다.

22. <자기>도 <환경>도 ‘더 쓰는 지체’다.

23. <자기 몸>도 <환경>도 그 센터에서 ‘한 가지’로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로 만들고 써라.

24. 모두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귀하게 쓰며 살겠다고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며 간구했나. 주셨으니, 귀하게 써야 된다. <최고 좋은 마지막 천 년 역사의 때>에 ‘시대 사명자’를 보내 주셨고, <자기 몸>도 <마음>도 이 시대에 해당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신부’가 되게 하셨으니, 인생이 더 늙기 전에 써야 된다.

25. <귀하게 쓰라는 말의 핵>은 ‘시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기뻐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심정과 뜻이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26. 하나님이 137억년 동안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살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환경’과 ‘자기 몸’을 매일 닦도록, 개성대로 귀하게 써야 된다.

27. <자기 몸>도 <만물>도 <환경>도 귀하게 써야, ‘귀한 것’을 얻고 풍부하게 누리며 산다.

28.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시대>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심판받는다. 하나님께 유익이 없으므로 ‘그 지역’에서 쫓아내시고, ‘지구 세상’에서 쫓아내시어 욕이 살지 못하게 하셨다.

29. 매일, 매시간 <성령>과 <주>와 함께하며 ‘그 생각’으로 살아야 기쁨이다. 그래야 희망도 꿈도 이루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도 ‘더 귀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귀한 것을 깨닫고 아는 자>는 ‘자기 몸’같이 여긴다.

2. 왜 귀한지 일일이 배우고, 다른 것과 비교도 해보고 따져 봐야 된다.

3. 알아야, 귀하게 여긴다.

4.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귀한 존재자’인지 모르면, 같이 살아도 모른다.

5.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르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같이 행했으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것이다. 결국 ‘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세상도, 따르던 자들도 같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다. 이 시대도 그러했다.

6. <때>가 지난 후에 깨닫고 후회해도 ‘받을 것’을 못 받게 된다.

7. 그렇게도 원하고 울고 간구해서 <주>도 보내주고, <물질>도 <원했던 것>도 줬는데 그때만 잠깐 좋아하고 사랑하다 끝나느냐.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한다.

8. <귀하게 여길 자>가 누구냐. 깨닫고 행하여라.

9. <귀한 것>을 모르면, ‘주’도 주지 않는다.

10. <각자가 기다렸던 희망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펴고 있다. ‘행하는 자’만 안다. 세상은 소경이다. 알 때까지 제 갈 길만 가게 된다.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기도>해야 ‘축복’을 주신다. 왜? 기도해야 ‘조건을 세운 자’가 되기 때문이다.

2. 지난날 ‘내가 얻은 것들’을 생각해 보아라. <기도>해서 이것도, 저것도 얻었다.

3. 솔로몬도 <기도>하니, ‘지혜’와 ‘명철’을 받게 되었다.

4. 여호수아가 <기도>하니, 하나님은 적들이 모두 물러가게 해 주셨다.

5. <기도>하면, ‘안 띄던 것’이 눈에 띈다.

6. <기도 기간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7. <기도>를 안 하고 하니, 네 소원대로 안 된 것이다.

8.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주께 고하니, 주가 기도하여 이루어졌다.

9. <기도>로 고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신다.

10. <기도로 해결해야 될 것>은 기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11. <기도>는 ‘지혜’와 ‘명철’과 ‘축복받은 것들’을 빼가지 않고 자기 것이 되게 한다.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메시아>도 ‘때’가 되어야 보내시고, <세상의 역사>도 ‘때’가 되어야 그에 해당되게 행하신다.

2.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메시아를 통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를 통해 ‘성경’도 풀어주신다.

3. <성경의 모든 인봉 된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근본을 풀어 가르쳐 주시고, 전하게 하신다.

4.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계에서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고, 그 안팎으로 쓰여진 글이 있는데 인봉되어 있어 이를 풀 자가 없어 울었다고 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와서 그 말씀의 인봉을 떼다고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말씀의 근본’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으로 오셔서 ‘새 시대 자녀급 역사’도 풀어주셨다.

5. 예수님이 <신약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자로 와서 행하신 것>이 곧, ‘구약 역사의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다.

6.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궁금증에 대한 답’도 말해 주셨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같이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의 답’이 되어 직접 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한 말씀’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뜻대로 행함>으로 ‘모든 것을 알게 해 준다는 말’이었다.

7.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에게만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임하시어 ‘성경’을 풀어주신다. <그의 행하심>이 ‘성경의 의문을 파헤치는 답’이다. <그의 입의 말>이 ‘생명의 말씀’이다. 고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하셨다.

8.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여 행하시니, 그가 ‘하나님’이라고도 했고 ‘성령’이라고도 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셨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9.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다.

10. <하나님과 일체 된 메시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본다.

11.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보낸 중심인물이나 메시아’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셨다.

12. 구약 때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나시며 크게 역사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되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통해 가장 많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나타내셨다. 구약에서 약속한 <신약 자녀급 시대>에서는 ‘아들을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과 같기 때문이었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대 보낸 자>에게는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메시아’를 통해 나타나 말씀하셨다.

<2020년 5월 3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노력하고 연구하고 행하면,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쉽게, 더 많이 행하게 된다.

2. <과학 문명>도 연구하여 발달될수록 기계를 써서 하니, ‘일’을 100배, 1000배 켜거나 더 많이 하고 쉽게 했다. <신앙의 삶>도 발달될수록 원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더 많이, 더 쉽게, 더 높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3. <신앙의 삶>도 연구하여 ‘옛것’을 ‘새것’으로 대체하여 행하면, 훨씬 쉽고 아주 이상적이다.

4. <옛 신앙에서 벗어난 자>는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고, <옛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도 주도 옛날식으로만 믿고 사니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다가 말기도 하고, 행해도 조금밖에 못한다. 고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속이 터지고, 영광도 기쁨도 조금만 받으신다.

5. <어렸을 때 하던 방법>은 힘들고 어렵다. 성장하면, ‘성장된 지능’대로 살아야 쉽고 ‘희망’도 쉽게 이룬다.

6. <같은 일>을 놓고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으로 하면 쉽고, 고생도 덜하다.

7. <신앙>도 ‘쉽게’ 해야 된다. 원시적 미개한 신앙일수록 세워야 하는 조건이 더 크니, 어렵게 한다.

8. <구약>은 ‘신앙의 조건’이 아주 많고, 까다롭고, 복잡했다. 그에 비해 <신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주 쉬웠다. 구약 때는 ‘양과 소’를 잡아 제물을 드리게 하는 <제사법>을 썼지만, 신약 때는 <예배>를 드리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게 했다. 구약 때 ‘살가죽을 찢어내고 피를 흘리며 할례를 하게 하던 것’도 폐하고, 신약 때는 ‘마음의 할례’를 하게 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상의 풍속까지 신앙화 했던 것들’을 신약 때는 모두 다 폐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9. 구약 때는 <안식일>에 ‘5리’도 못 나갔다. 신약 때는 ‘100리, 1000리’를 갔어도 죄가 아니었다. 성약 때는 필요하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10. 이 시대에는 <구시대에서 잘못 풀었던 성경>을 바로 풀어주어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지나친 예배의 횡수’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 진리를 아니, 자유롭게 됐다.

11. 고통을 벗어나려면 연구하여라. 방법도 달리하면서 행하여라. ‘쉽고 가벼운 방법’이 있다.

12. 인생들은 너무나 어렵게 살아간다. 이는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연구하여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이 시대의 현실을 봐도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같은 세상에 살면서 아주 발달되어 편하게 먹고 살기도 하고, 10년 100년 300년씩 뒤떨어져 살기도 한다. ‘본인이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는 자들> 역시 그러하다.
14. <옛날식>으로 믿으면 더 힘들다. 발달된 시대에서 ‘옛날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15. 3 <연구>하고 <노력>하면, ‘신’이 된다.
16. 하나님은 <발달되지 않은 옛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에 해당되는 법’을 주어 그들이 행하는 대로 대해주시며 그로 인한 영광도 받으셨다.
17.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다니도록 ‘새길’도 내고, 비와 바람과 눈을 피하도록 ‘집’도 짓고 살았다. 그러다 멀리에서 샘물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와서 마시는 것이 힘드니, 연구하여 ‘샘’을 파고 ‘댐’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물이 흐르게 해 놓고 편하게 살았다. 그러다 가물어서 물이 안 날 때는 천주의 자연의 조화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기계를 만들고 지하수를 100~700m씩 파서 아무리 날이 가물고 자연의 조화가 일어나도 물을 얼마든지 이용하여 썼다. 연구하니, ‘수돗물’을 마시게 되고, 더 발달되어 ‘천연수’도 마시게 됐다. 그러나 <힘든 것을 깨닫고도 연구하고 노력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당하는 일이지.’ 하고 말았다.
18. <책임분담>도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운명이나 자연의 조화로 인해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말하지만 말고, 공통의 운명을 개척해서 벗어나야 된다.
19.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옛것>은 버리게 하시고, <새것>을 주어 ‘더 좋게’ 해 주신다. 부활 복음을 주어 ‘영적인 신령한 방법’으로 하게 하신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영적으로 신령하게 하게 하신다.
20. <각자 연구하고 노력하여 쉽게 하는 것>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원하는 뜻’이다.
21. <연구>하지 않으면, ‘쉽게 할 것’도 어렵게 한다. <연구>하면, ‘할 일’을 쉽게 이상적으로 하게 된다.
22. 경제도 차원을 높이려면 연구해야 된다. 농사도 연구하면 훨씬 쉽게 많이 거둔다. 이와 같이 신앙도 <지난날의 옛 신앙들>을 ‘시대의 현실’에 맞게 더 좋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23. 운명도 예정도 아닌데, <옛 시대 신앙인들>은 새 시대가 오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지나도 ‘해 오던 삶’대로 살면서 계속 그 안에서만 더 발전하고, 더 잘 믿으려고 한다.
24.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당세에 주시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은 다음 시대의 것이니, ‘새 시대’가 와야 주신다. 그러나 기성은 ‘예수님의 육’이 다시 와서 주신다고만 희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계속 해 왔다. 하나님은 <옛 시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 시대’가 왔을 때 ‘새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해 주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 년 역사’를 펼쳐가며 신앙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받고 살고 있다.
25. <연구하여 시킨 일을 쉽게 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시킨 일을 ‘더 좋은 방법’으로만 하면 된다.
2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일을 한번 시키시면, 처음에는 그대로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된다. 항상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27. 하나님은 <자신의 할 일>을 시키실 때, 시킨 일을 그대로 다 행하면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키신다. <그 시대

의 할 일>을 다 할 때까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하시지만, 할 일이 끝나면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시키신다. 그러므로 <새 시대 신약>에는 ‘구약 때 해 놓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그 터전 위에 다른 일’을 행하게 하셨다.

28.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구약 때보다 하나님을 쉽게 믿게 하셨다. ‘구약의 옛 제도’를 폐하시고 ‘성장된 자가 행하는 법’을 주시며 지킬 만큼 더 쉽게 행하게 하셨다. 이 시대도 신약시대보다 더 쉽게 믿게 하기 위해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도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시대 말씀’을 주셨다. 그 방법으로 하니 너무 빨랐다. 하나님은 <차원 높은 사랑의 시대>를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이루셨다. 40년 동안 60개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300여 개의 교회도 세웠다. ‘참된 진리’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역사다. 군중이 몰려와도 거짓되고 그릇되고 참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두 헐어 버리고 폐하고 심판하셨다.

29. 섭리사는 쉽게 행해왔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시대 사명자’가 머리가 되어 하기 때문이다.

30. 신약 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심을 믿고 따른 자들>은 자녀같이 대해 주시며 ‘종들이 몸소 행하던 일’을 자녀들은 쉽게 행하게 인도해 주셨다. 자녀들이 잘 믿고 행하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 좋은 뜻’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신부로 대해 주시며 ‘이 시대의 뜻’을 더 좋게, 쉽게 펴 나가게 하신다.

31. <마지막 시대>는 ‘사랑의 대상의 시대’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통해 천지창조 목적을 행하시며 사랑의 세계를 이루시니, 시대의 법도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절대 사랑하고, 삼위가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행하시는 것을 절대 믿고 그를 사랑하고, ‘시대 진리’를 믿고 시인하며 사랑함으로 행하면 되는 쉬운 법을 주셨다.

32. <사랑>도 구약 때보다 신약 때 더 쉽고 좋게 발달되었고, 성약 때는 최고로 발달되었다. 구약 때는 ‘제사법’이었고, 신약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이었다. 성약 때는 ‘삼위와 주를 사랑하는 법’으로 쉽고, 어려움이 없다.

33. 믿기만 하지 말고, 쉽게 하도록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 연구하고 노력하여 중장비를 만들어서 하면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되듯이, 이 시대에도 연구하고 노력하여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을 행하면 10배, 100배, 1000배 더 행하게 된다.

34. 각자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행해야 된다.

35. 옛날식으로만 하면 힘들다. <전도>도 <가르침>도 <기도>도 <목회>도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섭리를 개발하는 일>도 모두 ‘최고 차원의 높은 방법’으로 해야 쉽게 된다. 최고로 발달된 시대이니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면서 ‘옛 것과 옛 방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

36. 많이 하려고 오래만 하지 말아라.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해야, 많이 하고 쉽게 한다.

37. <전도>도 <강의>도 <경제>도 <자기 할 일>도 연구해라. 전도도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여 ‘강의’를 잘해야 쉽게 된다. 경제도 주 안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38. 하나님이 ‘각종 삶의 구상’을 주셔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더 연구하고 좋게 해야 된다. 신앙도 삶도 그러하다.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하면 더 힘들고, 해 놓고도 후회한다.

39. <기도하는 것>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더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4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더 사랑하는 것>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방법’과 ‘지혜로운 답’을 주시기 때문이다.

41.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42. <옛 방법대로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새것'을 받고 '옛 방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삶도 인생의 삶도 쉽다.
43. <옛 시대의 방법>은 <새 시대의 방법>보다 어렵고, 힘들고, 인기도 덜하고, 기쁨도 사랑도 유익도 훨씬 덜하다. 고로 따르는 자들이 힘들게 따라가고, 그 숫자도 적다.
44. <옛것>이라고 다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옛것 중에 좋은 것>은 새 시대가 와도 쓰시는데, '더 좋은 방법'으로 쓰신다. 신약 때도 율법 중에 폐할 것은 폐하고, '10계명'은 그대로 쓰셨다. 이를 깨닫고 '옛것이라고 다 버리지 않음'을 알고 행해야 된다.
45. <전기 발명, 차 발명, 컴퓨터 발명>을 할 때도 '기본 위'에 더 노력하여 '새 시대 것'을 연구했다. <신앙>도 그러해야 된다.
46.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 더 좋게, 더 쉽게 행하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는 '시대의 처지에 따른 우리의 책임분담'이다.
47. 사람을 대할 때도 '성장한 정도'에 따라 대해야 쉽다. 성장했는데도 어렸을 때같이 대하면 어렵다. 컸으니, 자기가 하게 두고 '큰 것'만 코치해 주면 쉽다.
48. <어린 때에는 어린 대로만 대해주고, 크면 큰 자로 대해주는 것>이 '쉽고 힘들지 않게 대해주는 방법'이다.
49. <의학>도 <건강>도 연구하고 노력하면, 옛 방법보다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다. 옛날식으로만 하면 살 자도 죽는다. 연구하지 않으면, 순간 고칠 수 있는 허리도 수술해서 후유증이 생기고 고통을 받으니 수술을 안 한 것만 못하다. <신앙 관리>도 그러하다.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방법과 말씀으로 해야 쉽고, 기쁨도 유익도 축복도 크다.
5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함께하면, 쉽게 한다.
52. 이 시대는 '하나님이 주로 말미암아 가장 쉽게 살도록 사랑과 진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대'다. ◎ 각자 연구하여 더 쉽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같이 하면서 보면, 사람들은 너무 일을 어렵게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선생은 쉽게 합니다. 그러니 힘도 3분의 1밖에 안 들고, 3배, 5배, 10배 더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대로 지혜로, 최첨단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하면 쉽고, 고통이 없고, 재미와 기쁨과 희망이 충만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쉽게 하도록 생각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는 방법대로 하고 자기 처지에 따라 자기에 맞게 연구하며 성령의 인도대로 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황소 같은 힘이 있어도 쓰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하나'도 옮겨 놓지 못한다.
2. <생각 실천>이다.
3. <행하는 자>만이 얻고, '희망'을 이루고 누린다.
4. <생각>을 가만히 두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생각의 실천'이다.
5. <실천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6. 아무 것도 없어도 '실천'하면, 얻게 된다.
7. 자나 깨나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생각'이 깨어 있어 행하라.
8.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절벽 길을 올라가다가 멈춘 자'와 같다. 결국 다리가 저려서 떨어지고 만다.
9. 저마다 <실천의 능력>을 주었다. 실천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10. <실천자>만이 '성공'한다.
11. <자기 할 일>을 실천하여 '마귀와 귀신들'을 이기는 것이다.
12. 시간마다, 날마다, 그때마다 '할 일 실천'이다.
13. 실천하되, 지혜롭게 지식으로 '성령과 주의 방법'대로 실천하여라.
14. 실천할수록 쉽게 하도록 연구하면서 '각종 좋은 방법'으로 하여라.
15. 행해 버릇하여 '습관'이 들어야 하게 된다.
16. <하찮은 일>도 '실천에 게으른 자'는 수년씩 미루고 안 한다.
17. <성령의 감동>이 되면, 즉시 하게 된다.
18. <기도>하면 '실천의 시동'이 걸린다.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실천할 때 '조심'하여라.
2. 실천할 때 '분별'하여라.
3. 실천할 때 위험하니 '극히 조심'하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라.
4. 성령과 주를 부르며 함께 실천하여라.
5. 자신 스스로는 <행하는 능력>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약하다. 고로 기도하여 '성령과 주의 역사'를 받고, '하고 싶은 감동'이 되어 실천하여라.
6. 하나님께 실천할 것을 구상 받고 행하여라. 그래야 할 일을 함으로 '실천의 권세'를 받게 된다.
7.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만, '실천의 권세'를 크게 받게 된다.
8. <자기가 책임지고 꼭 행해야 할 것>도 제때 행해야 '실천의 권세'가 있다.
9. <말하지 않아야 될 것도 분별하지 않고 다 말하는 자>는 그 말로 인해 '주의 책망거리'가 된다.
10. <자기의 몸과 생각>을 온전하게 만드는 '실천의 능력자'가 되어라.

11. <실천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12. <실천자>는 ‘실천의 권세’를 가지고 무한히 실천하고, 무한히 받는다.
13. <실천자>는 실천할 것을 수시로 생각하며, 생각을 놀리지 않는다.
14. <주의 심정>과 일체 되어 실천하여라.
15. <주가 말해도 듣지 않는 자>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며 처리하신다.
16.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주가 네게 말한 것’을 듣지 않느냐.

<2020년 5월 17일 주일 잠언>

1. <성공한 자들>은 모두 다 ‘부지런한 자들’이다. <실패한 자들>을 보면, 게을러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실패했다.
2. <게으른 자>의 ‘밭’이나 ‘생활’을 보면, 잡초가 많고 청소할 곳이 많다. 영적으로 보아도 <게으른 자>의 ‘생각 밭, 마음 밭’이나 ‘생활’을 보면 손덜 곳이 너무나도 많다.
3. <게으른 자의 눈>에는 ‘육에 속한 일’이나 ‘영에 속한 일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눈>에는 잘 보인다. 고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
4. <게으름으로 잠든 자>는 소경이 되어 ‘제 할 일’을 안 한다.
5.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동안 너희를 부지런히 살피고 이끌어 주었으니, 너희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삼위와 주를 섬기며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아라.” 하셨다.
6. <게으른 자>는 ‘자기’도 죽게 하고, ‘자기가 관리하는 생명’도 죽게 한다.
7. 같은 위치에 있어도 <부지런한 자>가 ‘얻을 것’을 얻는다.
8. <부지런한 자>가 먼저 보고, 먼저 깨닫고, 먼저 행한다. 고로 먼저 얻는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역시 <게으른 자>에게는 ‘줄 것’을 주지 않으신다. 게으르면, 줘도 제대로 쓰지 않으니 너무나도 아깝기 때문이다.
10. 섭리사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보면, 모두 부지런히 행해서 때가 되어 기적으로 얻었다. 부지런히 행해서 사탄에게도 악한 자들에게도 뺏기지 않았다.
11. 부지런해야, ‘자기’를 다스리고, ‘타인’도 다스린다.
12. 부지런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섬기며 하루를 일 년같이 뜻 있게, 기쁨과 희망으로 산다.
13. <새 시대>에는 할 일도 많고, 얻을 것도 많다. 부지런히 행해야 ‘새로운 할 일’이 보이고, ‘얻을 것’을 얻고 부유해진다.
14. 부지런히 행해야, 환난 때 ‘귀한 것’을 잃지 않는다.

15. 저마다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행할 일들’을 찾아보아라. 게을러서 늦게 하면, 쓰고 누리는 시간이 짧다.
16. 모두 ‘할 일’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할 일’을 찾아야 된다. 없던 것도 부지런히 찾으면, 많이 보인다.
17. 기도하고 찾으면, ‘할 일’이 깨달아지고, 눈에 띄게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없다.
18. <설교>를 받아서 완성해 놓고 2번, 3번, 4번씩 읽어 보면서 ‘교정’하고, ‘더 해 줄 말을 써넣는 것’도 부지런한 일이다. 고로 훨씬 더 이상적이다. 이와 같이 설교를 듣는 자들도 말씀을 더 깨닫도록 2번, 3번, 4번씩 더 들어보고, 읽어 보면서 행해야 된다.
19. <하나님의 자연성전>도 부지런히 열심을 내면서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들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갖추니, 정말로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해졌다.
20.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행함으로 ‘받은 것’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환경’도 ‘자기’도 더 빛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21. <주>는 ‘부지런한 자, 열심을 내서 행하는 자’와 동행한다.
22. <게으른 자>는 ‘행해서 얻을 것’을 앞에 두고도 게을러서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빈곤하게 살아간다. 게으른 자는 ‘경제’도 ‘신앙’도 빈곤하다.
23. 어느 날에 주가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된다. 주를 보고 싶다고만 하지 말고, ‘할 일’을 해 놓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주가 와서 ‘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앉아 있다가 가고, ‘해 놓은 것’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간다.
24. 하나님도 성령님도 각자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주를 쓰고 가신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신다.
25. <교회>도 <교회 주변>도 살펴보면, ‘할 일’이 많다. 그러나 게으르면, ‘소경’이라 안 보인다. 게으른 소경들은 말씀을 듣고 눈을 떠야 된다. 눈을 뜨면, 할 일이 보여서 기뻐하게 된다.
26.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쓰시도록, 매일 부지런히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27. 지금은 <주를 실체로 맞고, 보고 사는 시대>다. ‘가상의 시대’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고 가시는 시대’다. 고로 부지런히, 열심을 내면서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된다.
28.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부지런하다고 자랑하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 앞에도 “저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요!”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29. 부지런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매일 부지런히 행하는 자에게 할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함께 행해 주신다.
3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지켜보며 같이 사는 때>이니, ‘할 일’을 깨끗이 해 놓고, ‘육’도 ‘영’도 ‘신앙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된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빠른 구름, 빠른 사람>을 타고 행하신다. 성경을 보아도 ‘빠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맞고, 많이 누리고 행했다.

32. <새 역사를 맞은 사람들>도 ‘부지런한 자들’이었다. 게으르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같이 행해 줄 수 없다.
33. <부지런히 행하는 것 자체>가 곧 ‘권세’와 ‘능력’이다.
34. <시대 신부>는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신부’로 가꾸고, 단장하고, 갓춘다. 부지런해야 ‘신부의 빛’이 나고, ‘사랑’을 받는다. 부지런해야 육도 영도 ‘휴거의 삶’을 더 이상적으로 살고, 만들어 놓은 것을 쓰면서 행복하게 산다.
35. 부지런하게 살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할 일’을 못 했기 때문이다. 결국 ‘게을러서 행하지 않은 일’로 인해 후회하게 된다.
36. <때>가 지나면 시간이 많아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기회’를 놓쳐 버렸기 때문이다. 게으른 자는 먹을 것도 제때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때 못 입고 산다. 바쁘다기보다 게을러서 그러하다.
37. <제때, 제 위치의 삶>이 ‘부지런한 삶’이다.
38. 성령과 같이 행하면, 부지런하다. 성령의 바람 타고 행하면, 날아간다. 날아가지 않으면, 다른 자에게 뺏기고 후회한다.
39. <성령을 받은 자, 성령과 함께 하는 자>는 빠르다. ‘성령의 불’이 마음과 정신에 붙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행한다.
40. 하나님과 성령님은 <빠른 구름, 빠른 사람>을 타고 ‘이 시대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이 시대의 할 일’을 하신다.
41. <지혜를 받은 표적>은 ‘부지런함’이다.
42.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자>는 ‘게으른 자’다.
43. 시대적으로 좋은 날,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어도 사람들은 정말 늦게 행하며 산다. ‘행동을 빨리하지 않는 자’는 실상 게으른 자다. 게으르면, 올해 할 일을 내년에 하게 된다.
44. 선생은 무엇을 행해도 다른 자보다 3배, 5배 빨리 행한다. 손발이 정말 빠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일사천리로 빨리 행하시니,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이다.
45. <주를 따르며 함께 행하는 자들>도 빨리해야 된다.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심정이 타고 애간장이 타니, 함께 행하지 못하고 떠나가신다.
4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행하는 자>는 특성상 빨리 생각하고, 빨리 행한다.
4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실제로 보며 사는 시대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와 <부지런히 알고 행하는 자>의 차이는 땅과 하늘 같다. ‘얻는 것’도 ‘누리는 것’도 그러하다.
48. 극적으로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 어떤 자는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긴긴 세월이 가도 ‘그 위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부지런한 자는 답답해서 같이 못 산다.
49.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고로 ‘원시인적 신앙’을 한다. 부지런한 자만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와 ‘휴거’를 이루고 산다.
50.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주를 맞고 사는 자들>은 ‘삶’이 달라야 된다. ‘생각’이 달라야 된다. ‘정신’이 달라야 된다. ‘얻은 것’이 달라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믿고 사랑하고 살면서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

51.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따르는 자들이 늦으면, 기다리다가 떠나신다. 다시 만나려면 몇 년 혹은 10년이 넘어야 올뚱말뚱하신다. ‘부지런한 자’가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맞고 사랑하며 산다.

52. <느린 자>는 ‘게으른 자’다. <재치 있고,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부지런한 자’다.

53.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시대적으로 발달되어 바쁜 때다.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고 행하며 살아라.” 하셨다.

54. <게으른 자>는 ‘주가 부지런히 얻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 금주에 ‘부지런한 자가 얻는다’하는 말씀을 선포했으니, 행할 일들을 부지런히 행해서 얻어야 됩니다. <실행할 일>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점점 겁이 나고, 엄두가 안 나서 결국 ‘그 일을 아예 안 하는 자’가 되어 버립니다. ◎ <부지런한 자>가 행할 때 따라서 행해야, ‘실천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가 됩니다. ◎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바로 1차, 2차로 실행하십니다. 선생도 주일말씀을 받고 바로 뛰고 달리면서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도 부지런한 자는 더 열심을 내서 할 일을 꼭 행하고, 게으른 자는 할 일을 즉시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연출>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것을 사람이 손대서 본질의 모습을 더 좋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 주는 것이다.

2.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본질에 해당되는 연출을 해야 되니, 하나님이 ‘연출의 구상’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연출의 눈을 뜨고 실천하는 자들이다.

3. <연출>을 배워라. 연출은 ‘1차 창조 때 본래 해 놓은 것을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신비하게 만드는 것’이다. 연출은 존재물마다, 지역마다 다 다르다.

4. 성령님은 <연출>을 근본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 실제로 연출 몇 가지를 해 보게 하셨다. 직접 해 보니, 연출이란 ‘본래 있는 것을 가릴 것은 가리고, 보일 것은 보이게 하고,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고 없애는 것임’을 알게 됐다.

5. <연출>을 잘 못 해 주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 하기도 하다.

6. <연출 전문가>는 한 가지로만 연출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의 연출’을 해서 본래의 것을 여러 가지로 빛나게 한다. 사람도 그러하고, 신앙도 그러하다.

7.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을 때, 그때가 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났을 때 행해라. 생각났을 때 만들어라. 자기 만들기다.

<2020년 6월 3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행하심>은 ‘그 일의 때’가 있기 때문이고, ‘앞날에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때’를 맞추기 위함이고, ‘이미 선지자나 중심인물을 통해 퍼 오신 뜻’을 맞춰서 행하시기 때문이고, ‘지난날에 약속한 것’을 때에 맞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2. <섭리사 안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일들>도 ‘때’를 맞춰서 해야 자료도 환경도 모든 여건들도 좋아지고, 순리로 된다.

3. 만일 사명자가 제때 못 하면, 따르는 자들도 모두 제때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내 놓으시고, 그를 쓰고 제때 행하신다.

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때’를 아시니, 하나님만이 사명자를 쓰고 ‘때’를 맞춰 행하신다.
5. 그 일의 사명자라도 쓰임을 받고 난 후에 ‘때’를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돼서야 알게 되기도 한다.
6. <시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알파날>은 한 때, 두 때, 반 때를 맞춘 날이다.
7.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인력으로 맞춰서 시대 말씀을 선포하며 제때 행한 자’는 아무도 없다.
8.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만이 삼위가 ‘그 욕’을 쓰고 행하시니 제때 맞춰 행한 것이다.
9. <천 년 역사를 펴 나갈 시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나오는 구원 역사, 영적 해방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는 ‘영도 욕도 생명권으로 나오는 부활의 역사’이기도 했다.
10. <시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날>부터 ‘새 시대 천 년 역사’가 시작됐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함께 선포하신 말씀>만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게 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천 년 역사>를 펴 나가실 때, 처음에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민족과 세계 단위로 뻗어 나가며 점진적으로 행하셨다.

<2020년 6월 14일 주일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행하는 자>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선이 되든지 불의가 되든지 ‘그 대가’를 베풀어 주신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은 ‘조건 대, 대가의 존재자’이다. 행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3.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사람이든 만물이든 귀하게 여기고 쓸수록 ‘그에 해당되는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주신다.
4.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쓰지 않으면,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주지 않으신다.
5.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쓰면, 하나님은 ‘더 귀한 자’를 보내시며 섭리사에서 더 귀하게 쓰게 하신다.
6. 사람도 자기가 준 것을 상대가 귀하게 쓰지 않고 천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준 자가 또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천 배, 만 배 더 그러하시다.
7. <삼위가 주신 것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쓰는 자>에게는 ‘그에 해당되는 것’을 또 주신다.
8. <하나님께 받는 비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알고 귀하게 쓰는 것’이다.
9.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만물’도 ‘물질’도 ‘사람’도 귀하게 쓰라고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쓰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주시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10.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 각종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빛이 나게 만들어서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써야 또 주신다. 성경 역사가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이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11.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참으로 값있고, 의미가 있고, 사연도 깊다. 하나님은 줄 것을 주실 때 사랑에 불타서 좋아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쓰라고 주신다. 또 하나님이 이같이 주셨다고 간증하고 증거하며 쓰라고 주신다.
12. 자기가 '사람'에게 받은 것을 세어보면 아주 적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상상도 못 하는 귀한 것들을 받았다. 지금껏 '주'로 말미암아 시대의 여러 가지들을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받았다. 가치를 모르는 자는 잃었을 것이고, 잃은 자는 모를 것이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생명'이다. 생명들을 어서 가르치고 만들어서 귀하게 써야 된다.
14. <자기 몸>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이 귀한데, 귀하게 쓰지 못하니 병들고, 아프고, 천대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게 된다.
15. <만물>도 <자기>도 귀하게 여기며 쓴 사람들은 인생을 3배, 5배 이상 산 사람과 같다.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10배, 100배 누리고 사는 사람과 같다.
16. 하나님은 <귀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보여 주시고, 그를 귀하게 대해 주시고, '귀한 것'을 또 주신다.
17. <가치를 상실한 자들>은 '그 존재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다.
18.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자기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잃거나, 뺏긴다.
19.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자기의 주인'이 된다.
20. <만물>도 <자기>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말만 주인이지 '주인 역할'을 못 하게 된다.
21.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깨끗이 청소하고 쓰니, 그다음에는 감히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 <자기 육신>도 귀하게 여기고 쓰면, 사탄도 인생들도 함부로 보고 대하지 않는다.
22. <만물>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써야, 그렇게도 귀하고 중하다.
23. 존재물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더 귀하다.
24.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써야, 또 준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생명도 연장시켜 주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하셨다.
25. 만물도 <귀하게 여기는 자>가 주인이므로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신다.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가를 받으시고, 주인에게 주신다.
26.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
27.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들'이다.
28.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섭리사에 와서 사는 자들'이다. 누가 몰라줘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29. 섭리사에서 <사명>을 맡았어도 귀하다는 것을 보편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많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사명을 하는 것이 뜻인가?" 한다. 하나님의 뜻이 '환경'에 따라 변하겠느냐? '자기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30. 절대 <자기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며 ‘천하에 한 명밖에 없는 개성적인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귀하게 써야 된다.
31. <만물>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들’이다. 귀하게 여기고 써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쓰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주신다.
32.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긴 자들>에게는 ‘그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귀하게 여긴 자들>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귀한 만물’을 또 주신다.
33. 귀하게 여겨야, ‘귀한 존재자’가 된다.
34.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관리해야 된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갖은 보람과 기쁨이 있다.
35. 저마다 <주>가 귀한 것을 깨달았다고 하지만, 더 깨닫고 행해야 된다. <시대 말씀>도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더 귀하게 여기고 행하며 살아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자기 유익이 없다.
36. <새 노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늘 부르고 영광 돌려야 된다.
37. <하나님이 주신 시대 자연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알고 귀하게 써야 된다. 성전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과 같다.
38. 한번은 선생이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미 줬노라. 네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모르는구나.” 하셨다. 후에 깨닫고 보니 이미 받은 것인데,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었다.
39. <수석>도 <나무>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눈’에 된다. 모든 존재물은 귀하게 여겨야, 그에 해당되는 주인이 된다.
40. <하나님의 생명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귀하게 여기며 잡고 있으면, 사탄이 빼앗아 갈 수 없다.
41. <자기>도 <휴거>도 <사랑>도 귀하게 여기며 절대시하며 살아야 된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섭리사에서 쫓아내신다.
42.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지 모르고, ‘사람의 사랑’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이 그렇게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43.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 죽을 때까지 희망과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났다. 그 당세에 메시아를 귀하게 여긴 자들은 ‘주의 즐거움’에 참여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축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행하는 자만 땅에서도 영계에서도 받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44.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수천 번씩 읽으면서 하나님께 배우고 터득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시대의 각종 것들을 받고, 섭리역사를 이루며 가고 있다.
45.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탄이 빼앗아 간다. 자기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그러하다. 귀하게 여기면, ‘생명을 쥐고 있는 것’과 같아서 빼앗길 수 없다.
46.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47.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48.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2020년 6월 21일 주일 잠언>

1. 마태복음 25장 1~13절 말씀의 핵심은 ‘열 처녀 중 다섯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비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을 맞으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메시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맞으라는 말씀’이다.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았지만, 예비하지 않고 맞은 자들은 기다리기만 했지 신랑을 맞지 못했다.

2. <신랑을 맞지 못했다는 말>은 ‘자기 최고의 희망과 사랑을 맞지 못했다는 말’이다.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맞지 못하면, 일생 희망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맞지 못하고, ‘메시아’를 맞지 못하면 일생 뿐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3. 유대종교인들은 4000년 동안 메시아 맞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린 메시아가 왔어도 못 맞았다. 이는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쓰고 오셨기 때문이다. 구약의 유대종교인들은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그렇게도 기다렸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쓰고 오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며 해 줄 것을 다 해 주셨다. 유대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몰라 봤다.

4. 육신의 세상에는 ‘육신’이 필요하다. 고로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오신다.

5. 절대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육신’을 쓰고 행하신다. 이는 천법(天法)이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은 신의 행하심을 눈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영적으로 보면 볼 수 있다.

6.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을 한지 2000년이 지났다.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믿던 자,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또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7. 구약 때 하나님이 온다고 했지만 신약 때 ‘예수님’이 오셨듯이, 신약 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도 성약 때는 시대가 다르니 ‘다른 사람’을 보내신다. 그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하며 행하는 자’다.

8. 구약 때 ‘하나님의 큰 사명을 했던 엘리야’는 승천하면서 다시 온다고 했고, 모두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신약 때 엘리야가 다시 오지 않고, ‘엘리야 사명을 할 세례요한’이 왔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그 사명을 할 다른 자’가 온다.

9. 예수님은 육신이 죽고 하나님과 같은 ‘영의 존재자’가 됐으니, 다시 와도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쓰고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를 쓰고 행하신다.

10. 하나님이 보낸 자는 ‘보낸 자의 일’을 한다.

11. 마태복음 25장 1~13절 말씀대로 신랑을 기다린 열 처녀들 중에 다섯은 맞고, 다섯은 못 맞았다. 신랑을 못 맞은 자들은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것이 아니다. 열 명 모두 신랑 맞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맞았다.

12. 열 처녀 비유를 보면, ‘신랑을 맞은 자’는 등도 기름도 준비했고, ‘신랑을 못 맞은 자’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해서 못 맞았다.

13.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맞지 못한 자들은 ‘한 가지’는 예비해 놓고, ‘다른 한 가지’는 예비해 놓지 못해서 못 맞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14. 예수님께 <기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기름은 사랑이다.” 말씀하셨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량을 못 맞았다는 말>은 ‘사랑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맞았다는 말’이다. 신량을 맞을 때 가장 큰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빠지면, 신량을 맞을 수 없다.

15.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맞지 않으면, 못 맞는다. 신약 때 예수님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맞이했다. 이 시대도 ‘절대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맞을 수 없고,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맞을 수 없다.

16. 사람들끼리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돌아가고 ‘생각’이 돌아가서 안 통한다.

17.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큰 법은 ‘사랑 법’이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이 무엇이나, ‘사랑’이다. 6000년 종교역사 동안 풀지 못한 창조 목적이 이 시대 성약 때 풀렸다.

18.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다.

19. <사랑>에도 차원이 있다. 어떤 차원의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뜻’도 다르다. 구약 때는 종 차원의 사랑을 해서 ‘종급 뜻’을 이뤘고, 신약 때는 자녀 차원의 사랑을 해서 ‘자녀급 뜻’을 이뤘다. 성약 때는 신부 차원의 사랑을 해서 ‘신부급 뜻’을 이뤘다.

20. 예수님은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다. ‘신약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육신 일생, 영 영원토록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이 시대에 다시 오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따른 자들’은 육신 일생, 영 영원히 신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신다.

21.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녀’로서 사랑해 주시고, 이 시대 보낸 주를 믿으면 ‘신부’로서 사랑해 주신다.

22. <신랑이 온 이유>는 ‘신부를 맞이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함’이고, <신부가 예비하고 준비한 이유>는 ‘신랑을 사랑으로 맞아서 평생을 같이 살기 위함’이다.

23.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여 인간 육신 일생, 영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기 위함’이다. ‘삼위를 사랑하며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두 번째 말씀> ◎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24. 성경 본문 말씀에 ‘신랑을 맞지 못한 다섯 처녀’는 미련하다고 했다. 그들은 왜 신랑을 맞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할 때 안 해서 그러하다. 고로 ‘할 때 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이다.” 하셨다.

25. <신랑을 맞지 못한 자들>은 할 때 안 해서 못 맞았다. 무엇을 할 때 안 했을까? 등을 준비할 때 ‘그에 해당되는 기름’도 준비했어야 했는데, 등은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하나는 준비했는데, 다른 하나는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랑을 맞지 못한 미련한 자들’이 됐다.

26. (성령님) 할 때 하라. 그때가 기회니라.

27. (성령님) 사랑도 할 때 하라. 일도 할 때 그에 해당되는 일을 다 해라. 귀하게 여길 때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귀하게 여겨라.

28. 일도 ‘그 일을 할 때’가 ‘그 일의 기회’다.

29. <할 때 하는 것>은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방법’이다.

30. 선생은 일을 할 때 해 왔기 때문에 인생을 성공하고 살았고, 나를 따르는 자들을 성공시켰다. 사람이 잘 되는 비법이 수백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방법이 ‘할 때 하는 것’이다.

31. <할 때 하라는 말>은 첫째, ‘할 때 그 일을 끝까지 해 버리라는 말’이다. 둘째, ‘하다가 말지 말하는 말’이다. ‘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말’이다. 셋째, ‘할 때 그 일에 해당되는 것을 다 해 버리라는 말’이다.

32. “할 때 하라.” -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책을 십만 권, 백만 권 읽어도 얻을 수 없는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성공 비법의 말씀’이다.

33.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할 때 안 한 자들’이다. ‘할 일’을 일부만 하고, 다 하지 않은 자들이다.

34.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셔서 행할 때는 ‘그때 해당되는 일’을 다 해 버려야 된다. 그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다.

35. 신앙생활도 할 때 제대로, 할 것을 다 하면서 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비우고 행해야 된다. 마음이 비워져야,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36. “할 때 하라” - 이 말씀 한 가지만 절대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는 대(大)성공을 한다. 그러므로 선생은 일을 하면, 그 일의 끝장을 내고 만다.

37.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중심인물들은 하나님이 일을 시키셨을 때 ‘그 센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한 자들이었다. 메시아 예수님도 그러했고, 선생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있으면 그때 다 해 버렸다. 그때 못한 것은 잘 안 됐고, 후에 후회했다.

38. (성령님) 할 때, 하는 김에 해 버려라.

39. 어렵고 힘들어도, 하는 김에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

40. 코로나도 조심할 때 아예 끝장나게 조심해야 된다. 참을 때 참지 못하고 돌아다니면, 다시 퍼져 나간다.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완전히 예비하지 않고서는 ‘기회’가 왔어도 놓친다.

2. 예비란, 비유컨대 새집을 예비해 놓고 새를 잡으면 즉시 넣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같다.

3. 촬영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면, 희귀종 짐승이 지나갈 때 즉시 찍을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메시아’도 해당되는 것을 예비해 놓고 있으면, 도적같이 왔을 때 알고 맞는다.

4. 메시아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니, 사랑으로 예비해 놓고 맞아야 된다. 미워하면, 맞지 못한다.

5. 신약 때는 종교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미워해서 못 맞고, 악평해서 못 맞았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6. 메시아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메시아를 믿기는 해도 맞지 못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 행하게 하여 의롭게 만들고, 영도 혼도 육도 사망에서 구원시키신다.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메시아가 없으면 ‘큰 뜻’을 펴지 않으신다.
2.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약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펴 왔다.
3. 메시아를 맞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계획하신 천지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4. 할 때 하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는 메시아를 맞을 때 제대로 맞으라는 말씀이다.
5. 할 때 하라! 주 안에서 일할 때 그 일을 남기지 말고 해당되는 일을 다 하라는 말씀이다.
6. 할 때 하라! 일은 할 때 그에 해당되는 일을 자세히 빠짐없이 하라는 성령과 주의 말씀이다.
7. 주가 겪고 행해보고 하는 말씀이다.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운동도 할 때 해야 된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종일 딴 일 때문에 못하게 된다.
2. 주를 맞지 못한 자는 등불을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다. 기름은 ‘사랑’을 비유했다. 신랑을 맞을 신부가 사랑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주도 사랑으로 완전히 맞아야 된다.
3. 할 때 하는 것이 삶의 성공 비법이다.
4. 절대자 삼위일체는 계시도 말씀도 줄 때 주신다. 그때 받아야 된다.
5. 반드시 ‘때’가 있다. 그때 그에 해당되는 일을 찾아내서 다 해야 된다.
6.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할 때 하신다. 주도 그러하다.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성령께 맡기는 것’이다.
2. 마음과 생각으로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3. 자기가 하던 일을 맡기는 것이 ‘행위를 비우는 것’이다.
4. 비운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5. 마음 비우기, 주의 말대로 하기, 성령의 감동과 그 말씀대로 하기다.
6. 전셋집도 비워줘야, 다음 사람이 들어간다.

7. 아담과 하와도 ‘자기 마음’을 비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함으로 범죄 했다.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대로 하기다.
2.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자기 선에서의 성공’이다. 전능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하나님 차원적인 성공’이다.
3. 완전히 행해야, ‘완전히 성공’한다.
4. 완전한 존재자는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시다.
5. 시작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하게 된다.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끝을 맺게 된다.
6. 인생 삶의 처음도 그러하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많은 일 가운데 ‘어떤 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일을 하며 하루를 마치듯, <인생>도 ‘처음에 시작한 대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7. 알고 생각하라. 모르고 생각하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한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니,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8. 사랑을 오래 하려면, ‘자기 마음’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다.
9.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 알고 살아야 될 것들’이 많다.
10. 저마다 살면서 ‘할 일들’이 너무 많다. 할 일이 없는 자는 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연구를 안 했기 때문이다.
11. 할 때 하라.
12. 할 때, 그때가 기회다.
13. ‘미련한 자’는 할 때 안 한다.
14. ‘슬기 있는 자’는 할 때 한다.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다 알았다고 하면, 더 안 가르쳐 주신다. 말씀을 듣고 잘 모른다고 해도 “말씀을 해 줘도 헛 일이다.” 하고 더 안 가르쳐 주신다. ‘핵심’은 알았는데, 더 배우고 싶다고 해야 된다.
2. <할 때 하라는 말>은 ‘할 때 집중해서 하라는 말’이다.
3. <할 때 하라는 말>은 ‘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다.
4. <할 때 하라는 말>은 ‘할 때 그에 해당되는 일을 남겨놓지 말고 깔끔하게 다 하라는 말’이다. 가령, 어떤 골짜기를 갔을 때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일들은 거기에서 모두 해야 된다. 다시 왔다 가려 하면,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된다.
5. 할 때 하고 나니, 그 후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와서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할 때 안 했으면 홍수 물결에 모두 떠내려 갔다. 생명들도 그러하다.

6. 할 때 하고 나니, ‘여건’도 ‘법’도 바뀌어서 그 후에는 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은 어느 때는 할 때 하라고 국가법도 바꿔 주셨다. 급히 행하고 나니, 법이 다시 원위치로 바뀌었다.
7. 탕자는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실패했다.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니 성공했다.
8. 실패한 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품’으로 돌아오면 성공한다.
9. 할 때 하라는 말씀의 주관권에 속한 말씀이 많다. 할 때 이에 속한 말씀들을 잠언으로 썼다.
10. 할 때 누구에게는 해 주고 누구에게는 안 해 주면, 못 해 준 사람에게는 다음에도 못 해 주게 된다. 전체에게 말씀을 해 주듯이 대해줘야 된다.
11. 하나님은 할 때 하신다. 여름철 비가 올 때도 “이때다!” 하고 비가 아주 쏟아지게 하신다. 만물도, 인생들도 그러하다.
12. 겨울에는 ‘겨울에 속한 것들’을 다 행하신다. 춥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눈이 오게 하신다. 그러다 봄, 여름, 가을에는 아예 눈이 오지 않게 하신다. 계절같이 사람에게도, 시대에도 그와 같이 행하신다.
13. 할 때 괴롭게 하여 ‘하나님’도 ‘시대 보낸 자’도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하여 믿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2020년 6월 28일 주일 잠언>

1.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주가 말씀하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2.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는 ‘유대종교인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사도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그의 지체가 되어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사도바울은 유대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봤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받고, 말씀을 가르쳤다.
3. 또 사도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쳤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유대종교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 하나님이 제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었다.
4.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항상 ‘시대 사명자’를 묶어서 말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주기 때문이다.
5.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묶어서 말해야 되고, 이 시대 사명자를 묶어서 말해야 된다.
6. 사도바울이 전한 것 같이 ‘시대 보낸 자의 하나님’이라고 증거 해야 된다. 그는 ‘하나님과 일체 된 지체’이기 때문이다.
7.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 ‘정신’에 주신다는 말씀이다.
8.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다. 이는 ‘지혜의 정신을 주어 깨닫도록 계시해 준다는 말’이다. 사도바울은 이를 겪어봤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확실하게 표현했다.

9. 지혜의 하나님이니,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로 계시해 주신다.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행하게 하신다.

10. <지혜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지혜의 계시’다. 어느 때는 꿈이나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지만, 어느 때는 지혜를 주사 ‘지혜의 정신과 마음’으로 계시해 주신다.

11. 영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영의 존재자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

12. 기성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의 근본’을 몰랐기 때문이다. 기성은 성경의 근본인 이 시대에 해당되는 <재림>과 <부활>과 <휴거>와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대해서 몰랐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섭리사는 시대 주로 말미암아 ‘시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됐다. 이는 하나님이 주를 통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기 때문이다.

13.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한 때 두 때 반 때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알게 된다(단12:10).”라고 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의 정신’을 받은 자다.

14.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지혜의 정신’으로 잠언을 쓰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지혜의 정신’을 받고 깨달았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그가 성장하면서 지혜가 충만해지더라.”라고 했다.

15.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태12:42).” 했다. 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마가12:37).” 했다. 사람은 항상 과거에 있던 자를 크게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시대가 커 갈수록, 새 시대가 올수록 ‘더 큰 자’를 보내 주신다.

16. 세상에서 제일 큰 자는 ‘메시아’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정권을 1000년, 2000년씩 맡기신다. 세상의 왕은 5년, 10년씩, 독재자는 몇십 년씩 정권을 잡는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2000년 왕권’이었고, 이 시대 그리스도의 왕권은 ‘1000년 왕권’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말씀’이다. 말씀한 대로 되고, 말씀한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17. 구약에서 크다고 했던 자들도, 신약에서 크다고 했던 자들도 모두 당세에 끝났다. 그들도 영계에 가서는 왕들이 아니고 수종을 드는 자들이 된다. 그러나 ‘메시아’는 영계에 가서도 왕권을 가지고 있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18. 에베소서 1장 17~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극히 큰 것을 알라고 했다. 성경을 보면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고 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다.

19. 하나님이 ‘깨닫는 정신’과 ‘깨닫는 지혜’를 주시면, 답을 알고 행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지혜의 계시로 깨달아야 된다.

2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큰 은혜>는, ‘깨닫는 지혜와 정신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기 원하며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큰 것’을 깨달지 못하면, 그 은혜는 삭감되고 점점 끊어진다.

21.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을 때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물질 축복을 주셨을 때 ‘물질 축복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축복을 주셨을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함께 실천해 주셨을 때 ‘실천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대가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중요>

22.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꼭 “번뜩!” 하면서 ‘하고자 하는 정신과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지혜의

정신'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다.

23. 하나님은 '지혜'로, '정신'으로 깨닫게 하며 계시하신다. 그때 계시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꼭 행해야 된다.

24.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그렇게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생명이 위급하고 위험할 때, 계시의 정신을 주어 순간 행하게 하신다.

25. 늘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에 해당되는 지혜의 정신과 마음'을 주어 실행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계시다.

26. <지혜로 깨닫고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정신'이다. <영감, 직감, 예감, 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시의 정신'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심으로 행하게 하신다.

27.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전달해 주신다. 첫째, <꿈 계시>가 있다. 꿈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유로 연출시키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며 계시하신다.둘째, <만물 계시>가 있다.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해 주시고, 지혜로 판단하게 하신다. 만물계시는 직접적으로 올 때가 있고, 간접적으로 올 때가 있다. 간접적인 계시는 암시하는 계시를 말한다.셋째, <사람을 통한 계시>도 있다. 하나님은 만물로도 계시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가 많다.

28. 넷째, 특별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계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음'이 들려온다. 들은 사람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바로 안다.성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중심인물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나온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고, 모세에게도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다. 노아에게도 "노아야, 너는 완전한 자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께도 수시로 말씀하셨다.

29.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신 말씀이다.

30. 하나님과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계시가 있고, 설교 때나 평소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계시가 있다. 대개, '시대 사명자,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하며 계시하신다.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한 계시>다. 머리를 통해서 지체가 전달받듯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전체에게 계시하실 때가 많다.

31.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계시의 전달'을 하고 계신다. <꿈>으로 계시하시고, <만물>로 계시하시고, <사람>을 통해 계시하시고, <음성>으로 직접 계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계시하신다. 때마다 합당한 것으로 계시하신다.

32.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혜의 정신을 주어 깨닫게 하는 계시를 주신다는 말'이다.

33. 순간 번뜩 생각나는 것이 '영감', 혹은 '계시의 정신'이다.

34.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나님과 성령님의 계시'를 받는다.

35. 정신이 온전해야 '온전한 계시'를 받는다.

36. 하나님과 성령님은 신부들에게 늘 '지혜의 정신'을 주신다. 그때그때 행할 수 있는 지혜, 그때그때 행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이다.

37.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정말로 크다. 깨닫는 정신을 주어도 이를 못 깨닫는 자들이 많다. 깨달아야 된다!

38.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말씀하셔도 예사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그는 '지혜 없는 자'가 되고, '계시를 거부하

는 자'다.

39.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정신을 바짝 차린 온전한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

40. 이 시대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다면, 각종 환난과 어려움에서 벌써 벗어났을 것이다. 추구도 전·후반에서 제대로 못 하면 연장전을 하게 되듯이, 환난 때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하면 '환난의 연장전'에 들어서서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41.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으니, 모두 이 축복을 받고 깨닫고 행해야 된다.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와 계시해 주심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대하여라.
2. 이미 받은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라.
3. 마음으로 주는 계시는 생각나게 하고, 감동되게 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기회를 주고, 알려주고, 지식으로 판단하게 한다.
4. 만물을 보여주며 계시해 주셔도 모르면, 깨달도록 '마음'으로 계시해 주신다.
5.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계시하신다.
6. 성령이 줄 것을 주려고 계시해 주셔도 못 깨달으면, 깨달도록 다른 것으로 또 계시하여 끝내 깨닫고 실천하게 해 주신다.
7. 하나님과 성령님은 '계시'가 선포되면, 즉시 실행하신다.
8.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일에 '계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벌써 몇 가지를 계시해 주셨다.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계시>를 받으려면 '시대 말씀'에 집중하라. 모두 '하나님이 이 시대 주를 통해 주시는 계시'다.
2. <계시>를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은 하나님이 메시아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다.
3. 자기 삶의 계시다.
4. 자기 차원적 계시다.
5. 삶의 영육의 차원을 높여야, 높은 차원의 계시를 받는다.
6.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라.
7. <지혜>, <계시>, <정신> 이 세 가지가 일체 돼야, '계시'를 제대로 받는다.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물>로 계시할 때는 실재와 ‘보이는 것’이 비슷하고, ‘특성’이 비슷한 만물로 보이신다. 그래야 상징적이기 때문이다.
2. 더러우면 더러운 것으로 보이시고, 깨끗하면 깨끗한 것으로 보이신다.
3. 고귀한 자는 고귀한 것으로 보이신다.
4. 계시할 때는 ‘만물’을 상징적으로 보이신다.
5. 어떤 동물을 보일 때는 무엇을 계시하는 것인지, 어떤 새를 보일 때는 무엇을 계시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상징적으로 보이신다. 불길하면 까마귀를 보이기도 하신다.
6. 꿈이나 생시에나 본 것이 ‘그 사람’을 상징한다.

<2020년 7월 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영계에 깊이 들어가려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깊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영계에도 깊이 들어가고, 육계에서도 깊은 ‘영계의 삶’을 살게 된다.
2. 알고 보면 모든 만물들이 귀한 보물이듯이, 알고 보면 세상은 ‘계시의 세계’다.
3. 계시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었으니 집중해 보면서 날마다, 때때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통해 혹은 ‘꿈’이나 ‘만물’이나 ‘사람’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라.
4. 사람이 배우고자 하면 삶 속에서 배울 것이 너무 많다.
5. 사람이 ‘부지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마다 ‘지혜롭게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다.
6. <정신>을 ‘계시’에 집중하며 살면,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깨닫게 되는 계시들이 너무 많다.
7. <계시의 목적, 깨닫게 하는 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알려주기 위함’이고, ‘자기를 위해 계시해 주기 위함’이다.
8.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성령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항상 사랑하며 잊지 않으면, 계시해 주신다.
9.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을 해 준다. 말이 그 사람의 계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은 ‘만물’이나 ‘꿈’으로, ‘지혜’로 깨닫게 하며 계시해 주신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정신을 집중하면 ‘계시’가 바로 온다. 극적으로 진정으로 사랑해도 그러하다.

<2020년 7월 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알아야 계시도 받는다.
2. 누구의 계시를 받느냐가 중요하다.
3. 자기 생각과 정신의 차원대로 계시하신다.

4. 신부라면, 신부에 해당되는 계시를 받는다.
5.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가 말 안 하면 모른다.
6. 큰 것은 <주>로 말미암아 행하신다.
7. 하나님과 성령님에 관한 것도, 주에 관한 것도 생활 공부다.

<2020년 7월 5일 주일 잠언>

1.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처음에 은혜 가운데 살 때는 그 삶이 얼마나 보람 있고 좋은지 알지만, 가다 보면 처음처럼 감사 감격하고 좋아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결국 은혜의 주관을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되니, 삼위는 깨닫게 하기 위하여 ‘환경’을 전환시키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 부딪히게도 하신다.” 하신다.
2.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관>에 살 때는 그 삶이 얼마나 보람 있고 좋은지 모르다가, 그 주관을 벗어나면 그제야 깨닫고 알게 된다. 그러나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금방 ‘본래의 주관’에 돌아갈 수 없다. 조건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3.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편안하게 잘 살았을 때는 그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후에 은혜를 잊고 고통과 어려운 역경이 닥치니, 그때 절실히 깨달았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본래의 주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깨닫고, 실천하고, 다시금 ‘처음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이다.
4. 종교 역사를 보면, 개인도 민족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관>에 들어와서 살 때는 “천국 같다! 정말로 행복하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격하며 살았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고마움’을 상실한다.
5.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실한 채로 살면, 축복의 세계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은혜와 사랑의 주관’, ‘행복의 주관’, ‘축복의 주관’을 벗어나게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주관>을 벗어나면, 그제야 하나님 안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었는지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다. 이는 마치 물을 쓸 때는 물이 귀한 것을 모르다가, 물이 마르면 그제야 물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지 알게 되는 것과 같다.
7. 잘 먹고, 잘 지낼 때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른다. 그러다가 사업이 안 되든지, 문제가 생겨서 ‘잘 사는 주관’을 벗어나면 그로 인해 10가지, 100가지 고통이 오게 되니, 그제야 잘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찾고 부르며 회개한다.
8. 여름철에 숨을 못 쉬게 더울 때 굴속에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서 절로 “천국 같다. 만족한다. 너무 좋다.” 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러다 굴 안에 오래 있으면 바깥 더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굴 안의 보람을 잊어버린다. 그러다 다시 굴 밖으로 나오면 후끈거려서 금방 더운 것을 느낀다. 그제야 굴 안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앞에도 그러하다.
9. 처음에 은혜 가운데 살 때는 ‘은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다가, 점점 못 느끼고 산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그 기쁨과 행복이 지속된다.
10.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에 살고 있었다. 그때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깨우쳐 주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여러 가지의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됐다. 이웃 나라에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제야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였다.

11.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 기간 내에 <정신>이 복직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보람’에 감사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12. 편안할 때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면, 고통의 주관권으로 넘어간다.

13. 축복의 때에 더 뛰고, 가치를 느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지난날, 없었을 때를 생각해야 된다.

14. 하나님이 편안하게 해 주시는 원인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15. 코로나에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만드는 일’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요, ‘생명들을 관리해 주는 일’이다.

16.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괴롭게 해서라도 정녕코 깨닫게 하신다.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수백 가치를 깨우쳐 주고 계신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깨닫고 느끼게 행하신다.

17.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할 때 ‘건강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사는 것에 감사 감격하지 못하면, ‘아픔의 고통’을 줌으로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게 하신다.

18. 섭리사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섭리사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그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어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주관권을 벗어나야 깨닫게 되니 끝내 하나님의 주관권을 벗어나게 하신다. 그러면 그제야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된다.

19. 사람들은 대개 아파 봐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는다. ‘새 시대 섭리사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신앙의 주관권을 벗어나 봐야 알게 된다.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큰지는 확인해 보나 마나다.

20. 신앙의 주관권을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 위신을 세우려고 “나는 괜찮다. 좋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이라 누구에게든지 다 통한다. 그 법을 벗어난 것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21.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평안의 주관권, 건강의 주관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 이를 상식으로만 알면 안 된다.

22. 하나님이 우리를 늘 편하고 기쁘게 해 주시고, 괴롭지 않게 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며 살라.’ 함이다.

23. 마가복음 4장 35~4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배를 타고 나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다. 가만히 있다가는 풍랑을 맞아 죽게 될 것 같으니,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고 그냥 두시렵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그제야 주를 고백하고 마음이 뒤집어졌다.

24. 육신도 마음같이 순간순간 잊고 변하니, 근신하며 살아야 된다.

25. 사람은 고통을 못 견딘다. 괴로움을 못 견딘다. 아픔을 겪지 않는 자들과 아픔을 겪는 자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 은혜’를 금방 또 잊어버린다. ‘건강할 때의 은혜와 삶’을 또 잊어버린다. 그러다 아프면, 자기가 건강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한다.

26. 선생도 전에 많이 아파도 보고, 고통도 받아 보고,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선고도 받아 봤다. 그때 나도 건강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약속대로 했다. 지금도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늘 사랑하며 살고 있다.

27.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속에 살게 해 주신 것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고, 뛰고 달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다.

28.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신랑을 빼앗긴 슬픔을 알겠느냐. 그러나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과 이상을 빼앗겼을 때는 알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하는 고통을 받게 되리라(마태9:15).” 하셨다.

29. 있을 때는 ‘있는 보람과 기쁨’을 모른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기쁨과 보람’을 모른다. 없을 때 깨닫게 되고, 안 될 때 깨닫게 된다.

30.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은혜 주관권 역사>가 있고, <환난기 역사>가 있다. 때가 되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환난기 역사’가 온다. 그러므로 ‘은혜의 주관권 세계’에 있을 때, 축복받는 기간에 최고로 뛰고, 최고로 행해야 된다. 환난기 때는 자기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니, 많이 못 한다.

3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준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면, 그 기쁨과 은혜가 지속되게 해 주신다.

32. 지금은 ‘섭리사에서 최고의 은혜 주관권 역사의 때’로 ‘축복의 기간 때’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해 주시는 기간이기도 하다.

33. 지금이 어느 때인지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개인과 민족과 세계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 주고 말리라.” 하신 말씀을 섭리사에 먼저 선포하셨다. 그때가 지금 이 기간이다. ‘선을 벗어난 자들’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깨닫고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며 얼마나 좋은지 깨우쳐 주고 있다.

34. 우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영광 돌리고, 자기를 만들고, 사랑에 불타서 신앙생활을 할 때다.

35. 이 기간에 제대로 못 하면,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고통의 기간에 들어가면, 정말 괴롭다. 한 번 감행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치 블랙홀에 들어가듯이, 고통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면 한 바퀴를 돌고 나와야 된다.

36. 하나님은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시대 말씀’을 한없이 주고 계신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대를 내다보고 합당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 그로 인해 평안한 것이다. 이를 깨닫고 늘 감사 감격하고, 보람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37. 복이 차고 넘치니, 복을 모른다. 그러다 근신하지 않으니 사탄에게 유혹을 받고 끌려가서 사망권을 거쳐 지옥 길로 좋아하며 가게 된다.

38. 처음에 잘 되고 좋을 때는 보람도 기쁨도 느끼지만, 후에는 제대로 못하게 되니 무기력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다시금 벗어나야 된다. 그 기간은 한 때, 두 때, 반 때라고 했다. 짧으면 3년, 혹은

7년, 혹은 21년이고, 길면 40년 혹은 400년 동안 탕감을 받은 다음에 ‘본래 주관권’으로 돌아오게 된다. 돌아와도 조건을 세운 자만 돌아온다. 이를 깨닫고 ‘있을 때, 잘 해 줄 때, 축복의 기간’에 정말로 잘해야 된다.

39. <이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천 년 역사 주관권>에 살지 않는 자들은 그 주관권이 얼마나 은혜롭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는 세계인지 모르고 산다. 새로운 역사가 오더라도 구시대 사람들은 ‘새 역사 이상세계’를 모른다.

40. 시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낫다(시84:10).”라고 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시대에서 평생을 살아도 새 시대에서 하루를 산 것만 못하다. 하나님의 새 역사 이상세계 안에서도 ‘잘 될 때의 하루’를 ‘안 될 때의 10년, 100년’이 못 따라간다.

41. 지금 이때, 축복의 때를 귀하고 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잘 될 때 더 뛰고, 더 근신하고, 더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원하는 것이다.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행하신다.
2. 못 느끼면, 보람이 없다.
3. 은혜의 주관권에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낀다. 그 주관권을 벗어나면 느낀다.
4. 물도 마실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끼고, 없으면 그때 귀한 것을 느낀다.
5.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못 느낀다. 없을 때 아쉬운 것도 귀한 것도 느끼고, 깨닫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6. 있을 때 느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7. 있을 때 좋아하는 신앙이 ‘깊은 신앙’이다.
8. 사명자가 자기 사명에 해당되는 일을 안 하고 딴 짓을 하면, 괴롭게 하여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
9. 무더운 여름철 굴 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시원함을 느끼지만, 오래 있으면 굴 안이 밖보다 시원한 것을 못 느낀다. 그러다 굴에서 나오면 그제야 굴 안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깨닫게 된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도 그러하다.
10.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해 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러다 아프면, 그제야 건강함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
11. 월명동을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좋은 것을 잘 느끼다가, 점점 못 느끼게 된다. 그러다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귀하고, 유익하고, 좋은지 깨닫는다. 귀하게 여긴 선생만 늘 사용하고 있다.
12. 돈도 쓸 때는 좋은 것을 모른다. 돈이 떨어져야 안다.
13. 아무리 좋은 집도 쓸 때는 좋은 것을 모른다. 없어 봐야 안다.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14. 가지고 있어도 안 쓰면, 귀한 것을 못 느낀다.
15.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다.

16.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좋아한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취향대로 좋아해라.

17. 어떤 자는 장단점 중에서 단점을 좋아하고, 어떤 자는 장점을 좋아한다. 단점을 좋아하는 이유는 현재에는 단점이지만, 개발해 놓으면 장점이 되기 때문이다.

18. 지혜자는 길의 앞날까지 생각하고 택한다.

19. 배워야, 분별한다. * 월요일 새벽에 추가로 써 주신 잠언

20.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아는 대로 은혜와 복이다.

21. 복을 받아도 자기가 수고함으로 얻었다고 하면, 보람도 기쁨도 자기 선에서 끝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시면 사랑하여 주셨으니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같이 사랑하며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알아라.

23.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사 온 인류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살피고 돕고 관리하신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들도 하나하나 살피고 도우신다.

24. 나무나 돌들이 사람들이 귀하게 보고 돕는 것을 모르듯이, 사람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돕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모른다. 지능이 발달할수록 한 차원 높은 짐승들은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

25. 사람들끼리도 지능이나 깨달음에 둔한 자일수록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모른다. 생각이 높고, 지혜 있는 자일수록 자기를 돕고 사랑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도 그러하다.

26.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다고 하셨으니, 짐승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극에 갔을 때, 극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2. 볼 때만 보이고 안 볼 때는 안 보이듯이, 사람은 거기에 처해있을 때만 안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 처음 신앙할 때의 '첫 사랑', '첫 믿음'을 후에도 깨닫고 알고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4. 있을 때 관리하기다. 있을 때 사랑하기다. 있을 때 가르치기다. 있을 때 만들기다.

5. 따뜻한 물속에 오래 있으면, 따뜻한 것을 잊고 무감각해진다. 물속에서 나오면 그제야 안다.

6. 욕은 마음과 같다. 마음의 전개체가 욕이다. 처음에 거기에 처해 살 때는 가치와 기쁨을 알다가, 후에는 잊고 모른다.

7.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잠에서 깨어 '얻은 것'을 깨닫고 써야 된다.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축복을 온전히 깨닫고 행하는 자>는 날마다 축복을 받고, 날마다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

2. 깨닫지 못하면, 받아도 쓰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잠자는 시간’을 보내듯 한다.

3.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사랑의 역사를 해 주시지 않고 돌리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도 ‘그 일에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기간’이 있다. 그때만 하신다.

5. 사람의 뇌나 마음과 생각을 보아도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다. 하나님도 그때만 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듯 행하신다. 그러므로 그때 같이 행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완성해 놓아야 된다.

6. 해 줄 때, 같이 행하기다.

7. 때가 지나면, 홀로 몸부림치게 된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그렇게 사랑해 주셔도 같이 행하지 않은 자>는 ‘자기 무지로 인해 스스로 축복을 배척한 자’다.

2.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각종으로 행한 대로 대하신다.

3. 한마음, 한 뜻이다. 이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할 때 ‘한 뜻’을 가지고 행하라는 말이다.

4. 코로나뿐만 아니라 스스로 각종 모두 조심하여 행하기다.

5. 코로나라는 이유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여라. 코로나 기간의 때가 지나면, ‘자기를 만드는 조용한 기회’를 놓친다.

6. 환난 때라고 ‘환난’만 오지 않는다. ‘아주 좋은 기회’도 온다.

7.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고 하셨다. 지금 모든 인류에게 각각 행하신다.

<2020년 7월 12일 주일 잠언>

1.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인데,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천 년’이라는 말이다.

2.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디게 행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날’로 계산해 보면, 하나님은 제때 맞춰 즉시 메시아를 보내셨다.

3.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메시아 맞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 멸망할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행하셨다.

4.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이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만 생각했다. 하루를 계산해 보

아도 ‘하나님의 날 하루’와 ‘사람의 날 하루’는 36만 5천 배나 차이가 난다.그러므로 이것을 알아야 할지니, 자기가 당장 필요한 것을 두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응답이 바로 안 와도, 포기하고 “나는 안 주시나 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그때’를 맞춰서 기다려야 된다.

5. 베드로후서 3장 10~11절을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다. 기독교는 이 말씀을 흔히 “말세에 불 심판이 있다. 그때 뜨거운 불로 체질과 지구가 녹아지고 풀어진다.”라고 푼다. 그 말대로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 곳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육신은 공중으로 산 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고 휴거된다.”라고 성경을 억지로 푼다.그러나 그와 같은 ‘불 심판’도 없고, 그와 같은 ‘휴거’도 없다. 없다는 것을 이미 ‘때’로 깨닫게 해 줬다. 때가 지났어도 이 같은 일은 없었다. 하나님은 이미 땅에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그 육신을 통해 ‘말씀의 심판’도 하시고, ‘휴거’도 시키셨다.

6. <체질을 불로 풀어지게 한다는 말>은 ‘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과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의문들을 가르쳐 풀어 준다는 말’이다.

7. 모든 것이 이같이 주로 말미암아 풀어지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나. 주를 믿고 존경함으로 대하고, 그와 일체되어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8. 하나님이 <45억 년 동안 긴긴 역사를 거쳐서 창조하신 지구>를 불로 심판해 없애시겠느냐.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을 때, 어떤 지역을 ‘불’로 심판해서 없애신 일이 있는지 봐야 된다.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로 심판해서 지구를 녹였는지 봐야 된다. 그런 일은 없었다.

9. 선생이 어렸을 때만 해도 모두 “말세가 되면 불 심판을 한다. 지구가 녹아진다.”라고만 알고 있었다. 성경의 불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니, 예수님은 “성경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다.”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부터 읽어 올라왔다. 그러면서 성경에 실제로 ‘불로 심판했던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다.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 답이 있다고 했기에, 일주일이 넘도록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서 다시금 <베드로후서 3장>을 읽게 됐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읽는데, 여기에서 ‘말씀이 불이라는 말씀’을 찾게 됐다.

10.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했다. 이는 경건치 않은 자들은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말’이다.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답’이 있다고 해서 한 바퀴를 읽었는데, 바로 앞 절에 답이 있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31061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의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답’이 있었다.

11. <성경>에는 ‘문제’도 있고, ‘답’도 있었다. 불 심판에 대해서는 먼저 ‘답’을 주고, 다음에 ‘문제’를 줬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선생이 어렸을 때 바로 앞부분에 ‘답’이 있던 것을 모르고 딴 곳만 읽었듯이, 기독교도 성경을 풀 때 그러했다.

12. 베드로후서 3장 12~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은 메시아가 오는 날이다. 그 날을 준비했다가 맞으라는 말이다. 계속해서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다. 이는 ‘천 년 성약 신부시대’를 두고 말한 것이다.

13.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은 죽고, ‘의인들’만 살려준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불로 심판하여 죽이고, ‘믿는 사람’만 살게 하지 않으셨다. 모세 때도 그러했고, 어느 시대든지 그러했다.

14.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며 심판하신다.”라고 했다. 예수님 때도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심판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안 지킨 자는 심판하셨고, 지킨 자는 심판하지 않으셨다. 그

러므로 <불 심판>은 ‘말씀 심판’이다.

15. 베드로후서 3장 3~4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됐지, 누가 또 온다는 말이나.” 하고 조롱했다. 불신하는 자는 무조건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일부러 부인한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 기독교인들은 주가 다시 강림한다는 약속을 믿으면서도, “예수님만 믿으면 됐지, 누가 다시 강림한다는 말이나. 기독교 신약역사 외에 무슨 역사가 또 일어나느냐.” 한다. 주를 맞지 못해서 그같이 말하고, 성약역사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같이 말한다.

16. <예수님>은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심판하셨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는 ‘불’로 심판하지 않고, ‘말씀’으로 심판한다. 말씀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말씀으로 심판한 결과가 그대로 일어난다.

17. 하나님이 주를 통해 “개인도 민족도 단체도 괴롭게 하여 깨우쳐 주리라.” 하신 말씀대로 심판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 심판, 말씀 심판’이다. 한 번 말씀하시면, 정녕코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18. 섭리역사 42년 동안 ‘시대 말씀’을 풀어주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를 통해 말씀으로 심판하셨다. - <심판>이란, “이것이 의다. 이것이 불의다.” 하고 알려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핵심>

19. <베드로후서 3장 8~13절 말씀>을 한 마디로 하면, “그날에 주를 보내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풀어주고, 악인들을 심판해서 깨끗하게 한다.”이다.

20. <말씀으로 풀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경도 풀어주고, 성경의 의문과 세상의 의문들을 풀어주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준다.”라는 말이다. 또 “주가 머리이니, 주가 풀어준다.”라는 말이다.

21. 모든 문제는 <주>가 풀어야, 제대로 풀어진다. ‘성경’도 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풀면 안 풀리듯이, ‘인생살이 문제’도 ‘섭리사 안의 문제’도 ‘형제끼리의 문제’도 주가 빠지면 안 풀어진다.

22. <주>로 말미암아 풀어야, ‘근본’이 풀린다.

23.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를 통해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들’도 공의롭게 풀어주신다. 전체에 말씀이 나가니, 말씀으로 풀어주신다.

24.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다. 땅에서 ‘사람들끼리 풀 것’이 따로 있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풀어주실 것’이 따로 있다.

25. 사람들끼리는 ‘땅의 것’을 풀고, 하늘의 사명자는 ‘하늘의 것’을 푼다. 그래야 사탄도 개입을 안 하고, 문제가 온전히 처리된다.

26. <주>로 말미암아 풀어진다.

27. 말세도 온 세상도 <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풀어진다.

28.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로 말미암아 성경을 뜨겁게 풀어 ‘마음들’도 ‘체질들’도 녹여주신다.

29. <뜨거운 불, 뜨거운 말씀 안>에서 ‘체질’도 풀어지고, ‘서로의 마음’도 ‘의문’도 화평과 사랑으로 풀어진다.

30. 한 번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섭리 회원’이 이왕이면 간호사 시험을 보겠다고 하기에, “허락하고 축복해 줄 테니, 열심히 해라.” 했다. 그런데 시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떨어졌다. 대개 시험에서 세 번 떨어지면 더 이상은 시험을 안 보는데, 선생이 말씀으로 “끝까지 하라.”라고 한 것을 듣고, 네 번째 시험을 봐서 합격됐다고 했다. 간호사 시험

을 본 자는 ‘끝까지 하라는 말씀’으로 문제가 풀어졌다고 했다. 선생이 끝까지 하라는 말씀을 안 해 줬으면, 세 번이나 떨어졌으니 더이상 시험을 안 봤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풀어진단다.

31.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풀어진단다.

32. 하나님은 <하나님이 육으로 쓰는 자>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를 통해서 ‘말세’도 풀어주시고, ‘개인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교회의 일’도 풀어주신다. 항상 주로 말미암아 풀어주신다.

33. 하나님은 <주>를 통해 ‘심판’도 하신다. 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항상 그대로 되고 만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리 하였은즉, 나도 이렇게 하겠다.” 하신다. 그대로 되어 버렸다.

34. 모든 것은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진단다. 다른 것으로는 안 풀어진단다. 사람들도 ‘자기 머리’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쉽게 푼다. 시험에든 것도 ‘머리’로 생각하면 금방 풀어진단다. 이같이 <주>는 ‘머리’이니, 주로 말미암아 풀어진단다.

35. <주가 아닌 다른 것>으로 풀면 오히려 ‘죄’가 되고, 풀어졌어도 ‘대가’가 있다.

36. <주>로 말미암아 ‘체질’이 풀어진단다.

37. <말씀>으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몸’, ‘체질’, ‘의문’ 등 각종 것들이 풀어진단다.

38. <음식>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익고, 풀어지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뜨거운 말씀’으로 풀어진단다.

39.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40.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풀어야 된다.

41. <사랑의 뜨거운 역사>로 풀어야 된다.

42. <주>는 ‘그만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으로 풀어준다.

43. <뜨거운 진리와 사랑>으로 풀어야, ‘근본’이 풀어진단다.

44. <땅의 것>은 땅에서 사람들끼리 풀어버리고, <하늘의 것>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 풀어야 된다. 그러면 땅에서도 ‘체질’이 풀어지고, ‘하늘에 연관된 것’도 녹아지고 끝난다. <핵심>

45. <말세의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함으로 ‘종말론자들’이 생겼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이들은 다른 성경 같이 말세도 역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했다.

46. 성경을 바로 풀면, <말세>는 ‘불 심판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옛것이 끝나고 새것,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봄이 끝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고 계절이 돌고 돌 듯이, 아예 끝나는 것은 없다. 다만, ‘그 주관권’이 끝나는 것이다.

47. <말세>가 되어 ‘새 시대’가 시작했어도, 구시대에만 있으면 ‘구시대’에서 끝나고 만다. 새 시대에 온 자만 안다.

48. 세상에는 ‘지구 종말론자들’이 많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적 계시를 잘 못 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행한 자들이다. 그들이 주장한 종말론이 틀렸으니, 그들의 종교도 좌절되고 끝났다.

49. <주>로 말미암아 ‘말씀’이 풀린다. 하나님은 <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50. <주>로 말미암아 ‘섭리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개인의 것’도 풀어지고, ‘민족과 세계의 것’도 풀어진다.

51. <주>가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풀어줘야, ‘모든 어려운 현실’이 풀어진다. 그 전에는 안 풀어진다. 이 말을 깨달아라.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불같은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미련함으로 ‘말씀’은 빼고 ‘불’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뜨거운 불’로 심판하신다고 가르치며 두려움으로 미련하게 살았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육신의 고통도 더해지고, 마음의 고통과 영의 고통도 더해진다.

2. 지금은 하나님이 주를 통해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기간이다.

3. 주와 함께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를 보내어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해결해 주신다.

5. 주가 왔어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풀어주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

6. 주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

7. 긴긴 역사를 두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하나님은 ‘주’를 보내어 풀어주며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선지선열들을 통해 예언하신 희망의 말씀들>도 <구원의 문제>도 <새 역사의 뜻>도 ‘메시아’를 보내어 풀어주고, 해결해 주셨다.

8. <성경>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육과 영에 속한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다.

9. 하나님의 법은 행하는 대로 주시는 법이다. 알고 행하면 ‘축복’을 받지만, 모르고 못 행하면 오히려 ‘심판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진정으로 귀하게 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행하지 않으면, 신부로서 ‘사랑의 대상의 위치’에 서지 못한다.

11. 인간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겨우 ‘신의 사랑의 대상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통하게 된다.

12. 코로나 기간에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를 만들어 쓰지 않으면, 옛날 그 위치에서 살게 된다. ‘환경’도 ‘자기’도 ‘하나님이 주신 만물들’도 그러하다. 그러니 주도 더 만들고, 더 노력하고,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깨끗하게 한 것이다.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풀어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를 통해 풀어주신다.

2.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풀 수 없다.

3. 자기 책임분담은 자기 스스로 풀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펴는 큰 것들은 절대 ‘시대’가 오고, ‘시대 보낸

자'가 오고, '모든 앞날의 일들'이 진행되어야 풀어주신다.

4. 성경을 제대로 풀어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고, 자기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여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풀리게 된다.

5.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하셨으니, 먼저 땅에서 인간의 책임을 다해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6. 종교 역사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사명자를 보내시고, 그때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셨다.

7. 누구든지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만다. 그다음 기회도 있으니 기다렸다가 행해라.

8. 자기가 때를 놓쳤어도 하나님은 '때를 맞은 자, 시대 보낸 메시아'를 중시하여 그와 같이 행하셨다.

9.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때에 세워 놓은 뜻'을 미룰 수 없으니, 사람들이 때를 놓치고 못 행해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행해 오셨다.

10.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을 두고 전체가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일부 사람들만 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그러하니, 하나님은 '일부 아는 자들'을 통해 행하신다.

11.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이 보낸 시대 메시아'나 '선지자'는 안다. 고로 '아는 자'가 전해 주어 역사를 일으켜 왔다.

12. 자기가 모른다고 세상 사람 모두가 모르는 줄 안다. 혹은 자기가 안다고 세상 사람 모두가 아는 것으로 생각도 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메시아를 통해 말씀을 주어 풀어주는 것'만 알게 된다.

14. 세상에서도 '그 일에 해당되는 자들'만 그 일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도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세월이 가도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른다.

15. 예수님의 복음도 2000년 동안이나 전해져 왔기 때문에 지구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이만큼 알려졌다. 지금도 믿고 따르는 자들만 알지,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이 없다.

16. 세상을 흔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모르는 자'는 모르고 '아는 자'만 안다.

17. 지진이 나서 한 나라, 한 지역이 없어졌는데도 '아는 자'만 알고 '모르는 자'는 아주 모른다. 이와 같이 만사가 그러하다.

18. 선지자 때는 선지자를 보내어 풀어 주고, 메시아 때는 메시아를 보내어 풀어 준다.

19. 하나님과 성령님이 해 주신 만큼 잘해야 된다.

20.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 주어라. 그래야 제대로 풀어진다.

21. 자기가 먼저 풀고, 형제 것도 이웃 것도 풀어 주기다.

22. 매일 '하나님의 뜻'으로 주와 같이 살아야, 매일 매인 것이 풀어진다.

2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풀어주지 않으면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되고, 고통이 되고, 죽게도 된다.

24. 풀어 준다고 할 때, 잘 되게 적극적으로 하여라.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를 통해 풀어 준다고 하신 말씀을 깨달아라.
2. 어떤 것은 평소에 보이지도 않던 형상과 모양이 제대로 보이게 하고, 그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하며 귀한 것을 풀어 주신다.
3.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풀어 드려야, 자기도 그 급에 해당되게 풀어 주신다.
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도 형제들의 마음도 풀어 줘야, 자기 마음도 풀린다.
5. 풀어 줄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에게 풀어 줄 말씀을 받아야 된다.
7. 풀어 주라는 말씀 기간에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과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 간에도 서로 풀어 주어라.
8. 땅에서 풀어 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역시 하늘에서도 풀어 주신다.
9. 말세 때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고, 예언도 풀어진단다. 주로 말미암아 풀어 주어,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이야기하고 간구하며 풀어 달라고 하여라. 자기 능력으로 풀 것도 있지만 절대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통해서 풀 것은 반드시 그리해야 풀어진단다.
11. 적극적으로 풀어지는 때에 '성경'도 풀고, '자기' 것도 풀고 '섭리사의 일들'도 풀어라.
12. 풀어지는 기회가 한 번 지나가면, 풀기 어렵다. 다시 때가 와야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각종으로 행한 대로 풀어 주신다.
14. 이 기간에 하나님은 각종 것들을 풀어 주신다. 저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행하라.
15. 주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을 풀어 주고 해결해 주는데, 잠자는 자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산다.
16. 이 기간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이미 문제를 풀어 준 자들은 좋아하고 기뻐 뛰며 사랑으로 행하여라.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말씀하셔야 허락되고 진행된다.
2. 한 나라의 법도 행정적으로 허가해 줘야 진행된다.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육의 나라도 그러하다.
3.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도 한 것은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했기 때문에 무너트리기도 하시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홍수에 스스로 무너지게도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일은 무너지고, 무지로 그릇되게 생각하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시대 보낸 메시아를 통해 행한 대로 복과 화를 갚아 주시며 오직 전능자의 뜻을 펼쳐 나가신다.
5.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를 통해 말씀하시고 정녕코 행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6.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괴롭다. 사망과 고통의 주관권에서 산다.
7. 코로나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문제도 주로 말미암아 풀어주니, 더 진실로 행하여라.
8. 풀어주면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더 사랑으로 진리로 행해야 된다.
9. 하나님과 성령님이 저마다 풀어 주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매일 신부로서 진정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10. 자기 행위대로 가도록 풀어 주신다. 행위대로 새 시대 생명권으로 오게 풀어주시고, 구시대 사망권으로 가게 풀어 주신다.
11. 진실로 하나님과 주의 날을 맞고 살아야 된다.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못 행했어도 역사는 행한 대로 고통이다.
12. 하나님과 주가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불신하면, 불신의 길로 간다. 그러다 고통받는 때가 되어야 깨닫게 된다. 자기 그릇된 생각만 하고 행하면,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을 벗어난 길로 간다. 거짓된 자와 마음이 변한 자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육도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온전하게 행하는 자만 산다.
13. 무지와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 행하며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의 신부가 될 수 없다. 천국에 사는 자만 천국이 좋은 것을 알고, 지옥에 사는 자는 그 좋은 것을 모른다. 땅에서 육도 하늘 주관권에서 신부되어 사는 자만 그 가치를 안다. 주관권 밖의 사람은 새 역사의 기쁨도 이상도 모른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17은 혁명과 개혁의 숫자다. 보통으로 하면 항상 보통만 된다.
2. 정신 차리고 해야, 무엇이랄도 더 잘하게 된다.
3.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만큼 잘 된다.
4. 정신을 차려도, 모르면 못하게 된다.
5.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를 통해 그에 해당되는 만큼 말씀해 주신다. 행하여 얻고 이상 세계를 만들어라.
6. 자기가 하고자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같이 하고자 하신다.
7. 자기 심리, 하나님과 주의 심리다. 자기를 통해서 절대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깨닫고 알아라.
8. 어느 때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와 같이 그러하다고 깨닫게 해 주신다.
9.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깨끗하고 확실하고 속이 시원하고 모든 자들의 마음에 들게 한다.

10. 풀어 준다는 말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인봉 된 말씀은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 말씀으로 풀어 주신다.
11.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것이다. 불로 풀 수 없다.
12. 사랑의 문제는 사랑으로 풀고, 경제의 문제는 경제로 푼다.
13. 사람의 문제는 마음을 풀어 주기다. 말로 풀어 주기다.
14. 하나님께 풀어 달라고 하고, 주께 풀어 달라고 하여라.
15. 풀어 주는 기간이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행하여라.
16.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이 진행하셔도 모른다.
17. 깨닫지 못한 자는 결국 거르는 데 걸려서 딴 길로 가게 된다.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제때 할 일을 해야 그때 풀 것을 풀어 주신다.
2.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를 통해 그 시대의 것을 풀어 주신다.
3.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 줘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모든 것이 풀어진단다.
4. 이스라엘 민족은 종된 몸에서 풀어졌는데도 작은 어려움을 못 이기고 불만함으로 다시 묶이게 되어 신광야 삶을 살게 됐다.
5. 성경을 풀어 줘도 주를 믿고 따르며 실천한 자만 사랑으로 휴거 되어 육도 영도 황금천국 삶을 살게 된다.
6. 말씀과 같이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대로 풀어져야 된다.
7. 뜨거운 진리의 말씀을 쫓는데도 풀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묶여있게 된다.
8. 말씀으로 자기를 녹여야 된다. 묶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해야 된다.
9.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도 몸도 자유함을 받았으니, 주와 일체 되어 삼위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10.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주도 동행하지 못한다.
11. 기도는 성령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준다.
12.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사랑의 동행이다.
13.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행하며 살아가기다.
14. 잊으면 죽는다. 잊으면 못하니, 생명도 사망권으로 가서 죽게 된다. 만사가 그러하다. 늘 생각해라. 기록하여 보면서 잊지 않게 해라. 행해야 잊지 않는다.
15. 멀어지면 남이 된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면 몸도 멀어진다.

16. 신령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과 주를 생각해라.

<2020년 7월 19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이 주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강할수록 보다 위력 있고, 권세 있고, 신령한 말씀이 나온다.

2. 깨닫지 못하는 자는 '생명길'을 갈 수 없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갈 길'을 못 간다.

3.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육은 땅에서 짐승같이 살고, 영도 영계에서 그 행위대로 짐승이 되어 산다. 영계를 보니, 헤롯왕은 여우 짓을 해서 여우가 되어 살고, 성경의 교만했던 왕들은 염소나 사자가 되어 살고 있었다.

4.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짐승 같은 자다.

5.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부터 복도 주고, 심판도 하신다.

6.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녕코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변함이 없다. 고로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중심해야 된다.

7. 하나님은 항상 중심권에 맞춰서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와 '택하신 민족'을 중심해서 때를 정하시고 묶어 주시기도 하고 풀어 주시기도 한다.

8.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심권이 핵이 되어 하나님은 그로 인해 '때'를 정하시고 묶어 주시기도 하고, 풀어 주시기도 한다.

9. 그 시대의 중심 종교가 핵이 되어 '성경의 예언'도 이루고, '세계의 모든 일들'도 이룬다.

10.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시대 보낸 자'를 중심하여 말씀하시고, '그를 확대한 섭리사'를 중심하여 행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11.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와 그 시대의 중심 종교가 역사를 좌우한다. 한 때 두 때 반 때의 역사도 그로부터 좌우된다. 그 외에 "하나님의 때가 됐다. 안 됐다." 하는 자들의 말은 다 맞지 않다.

12. 하나님의 때와 기간은 모두 성경에 나와 있다. 항상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지킨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 구약 때는 '구약의 때'와 '구약의 중심인물들'에 맞춰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신약 때도 '신약의 때'와 '메시아 예수님'에 맞춰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13.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나 세상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와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핵의 역사'를 중심해서 지구촌 전체의 때를 맞춰 나가신다.

14.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보낸 때'를 기준하시고, '섭리역사'를 중심해서 때를 맞춰 나가신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나 새 역사에 대해서 "이때다. 저때다." 하는 말들은 다 그릇된 말이다.

15. 하나님은 '구시대 기성의 때'를 맞춰 나가지 않으시고, '새 시대 섭리사의 때'를 중심해 나가신다.

16. 하나님은 주를 문으로 삼고 '때의 문'을 닫고 여신다. 그러므로 그가 먼저 깨닫고 알 수밖에 없다. 그가 열면 열리고, 그가 닫으면 닫힌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행하시니 그가 먼저 깨닫고 알게 되고, 그가 먼저 외치게 된다. 이를 깨닫고 행해야 된다.

17. 시대 보낸 자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행하게 됨을 알아야 된다.
18. 주가 행하는데도 때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사람만 때를 못 맞게 된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주관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을 수 없다.
19. 주가 자체로 스스로 달고 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다.
20. 신약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곧, 신약 역사의 길이였다. 신약의 진리의 말씀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21. 새 시대 메시아가 오면, 그로부터 새 진리가 시작되고, 새로운 길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
22. 축소시켜서 섭리사를 보아도, 어떤 일이 진행될 때 먼저는 사명자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안 하는데 하면, 그것은 뜻이 아니라서 헐어 버린다.
23. 주는 ‘때’다. ‘시간’이다. ‘태양’이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때를 알아야 된다.
24. 어떤 것을 사든지, 개발하든지, 먹든지 자든지 모든 것은 주로부터 시작된다. 그가 머리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25. 요한복음 10장 1절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했다. 이는 ‘주보다 먼저 행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말이다.
26. 목자는 ‘문’을 통해서 양들을 몰고 다닌다. 그러나 노략질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는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 서 ‘길이 아닌 곳’을 길로 삼고 행한다.
27. 항상 ‘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해야 된다.
28. 하나님은 정녕코 그 뜻을 이루신다. 올 한해를 봐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게 된다.”라고 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를 통해 은밀하게 말씀하시며 깨달게 하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조심하라.”, “다섯 달 동안 괴롭게 해서 깨우쳐 주리라.” 말씀하셨다. 2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다섯 달 동안이었다.
29.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같이 “괴롭게 하여 섭리인들도, 이 백성들도 깨우쳐 주리라.”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나님은 각 나라 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시대’를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깨달게 하시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모두에게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깨달게 하시고,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게 하셨다.
30. 코로나 기간에 섭리사는 더 처절하게 깨달았다. 우리의 고통은 ‘코로나에 걸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모여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고통’, ‘시대 신부들로서 하늘을 만나고 같이 먹고 마시며 뜻을 펴지 못하는 고통’이었다. 이 고통이 다섯 달 동안 연속됐다. 이 기간을 통해서 ‘주의 가치’도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가치’도 깨닫고, ‘사랑’도 깨닫고, ‘섭리사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게 되었다.
31. 자기를 만든 대로 쓰인다. 덜 만든 자는 다시 만들면서 가야 되고, 만든 자는 더 큰 일을 하며 쓰여야 된다.
32. 시대의 주인들인 섭리인들이 더 처절하게 깨닫고 행해야 된다. 섭리사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더욱 노하신다. 저 이방의 사람들보다 더 급한 자가 우리들이다. 깨닫고, 정신 차리고 행할 자가 바로 시대 신부들인 우리들이다.

33. 코로나로 인해 61만 명 이상이 죽었고, 14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앞에 놓고 고통을 받았다.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 받는 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경제의 손실이 갔고, 여러 분야에 타격이 갔다. 다시 원상으로 일으키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일어나지 못하고 좌절되는 자들도 많을 것이다.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보호하셨음을 절실히 깨닫고 열심히 행해야 된다. 깨닫지 못한 자들의 것까지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모든 역사가 ‘중심 종교인 섭리사’에 맞춰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

34. 이번에 섭리역사가 ‘천 년 역사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했다. 이를 깨닫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도 말고 행해야 된다. 어떤 이들은 섭리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악평하고 불신하지만, 모두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 그같이 말한다. 유혹하는 자들을 불신으로 대해야 된다.

35.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녕코 행하신다.

36. 섭리역사는 지금까지 42년 동안 ‘성경의 뜻’을 이루며 행해 왔다. 예수님 이후 2000년부터 천 년 역사를 시작하여 ‘성경의 때’를 맞춰 왔고, ‘성경에 예수님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며 왔다. 그러므로 섭리역사는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때를 맞춰 행해 오신 ‘하나님의 중심 역사’다.

37.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라고 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세례요한 때까지였듯이, ‘신약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도 이 시대 세례요한 때까지다.

38. 신약에서 예언한 것은 다음 시대인 ‘성약 섭리역사’에서 다 이루어졌다. 섭리사에서 ‘휴거 역사’도 이루었고, ‘말세의 불심판’도 불이 아닌 말씀으로 풀어 이루었다. ‘주님이 강림하면 부활된다.’라는 말도 육신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로 이루었다.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아 영과 육이 새롭게 되고,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살아나서 사는 ‘구원’도 이루었고,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뜻’도 이루었다.

39. 섭리사는 ‘성경에서 희망한 것들’을 이루며 가고 있다. - 이를 깨달아야 된다. 섭리사는 ‘기성이 그토록 기다렸던 성약 천년 역사’를 42년 동안 펴 왔다. - 이를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살아야 기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40. 신약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역사를 맞고, 시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심령이 죽은 자들이다.

41. 깨닫지 못하면, 생명길을 못 간다.

42. 주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살아야, 신앙이 죽지 않은 자다.

43. 하나님이 시대 천 년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모르는 자들은 신앙의 삶을 허투루 사는 자들이다. 이제는 깨달을 때다.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책임분담으로 깨닫게 하신다. 큰 것은 주를 통해 비유를 들어 은밀하게 혹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비밀을 깨달았는지 물으신다.

2.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깨닫고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3.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시니 그 역사의 연대와 날짜가 정확하게 맞다.

4. 하나님의 역사의 연대와 날짜는 개인과 민족과 세계까지 신비하게 맞다.

5. 하나님은 오묘하고 신비하고 감탄하도록 연도와 날짜를 맞춰서 행하신다.
6. 하나님이 언제부터 연도와 날짜를 계산하시나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스스로 혹은 메시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지킨 날부터 계산하기도 하셨다.
7. 목적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쟈 때 차를 타고 출발한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이 말씀을 지킨 날부터 때를 정하시고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신다.
8. 경기하는 자가 출발선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듯이, 하나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때와 날짜를 계산하신다.
9. 다니엘 12장을 봐도 하나님은 미운 물건, 즉 회교 사원을 세우기 시작한 때부터 '한 때 두 때 반 때'를 계산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 전당을 짓기 시작한 688년부터 126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됐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늘 편 혹은 가인 편에서 행하기 시작한 때부터 연도와 날짜를 계산하신다.
1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때와 연도와 날짜를 정하고 행하심도 신비하고 오묘하지만, 사람을 창조하신 모양과 형상도 최고로 오묘하고 신비함을 깨달아야 된다.
11. 하나님이 사람을 신비하고 오묘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신비하고 오묘하게 쓰심을 깨달아야 된다.
12.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사랑하며 사는 자만 신비하고 오묘한 것을 더 깨닫게 하신다.
13.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깨닫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14. 하나님과 성령님이 각자에게나 섭리사에 그때마다 합당하게 행하며 도우시는 오묘하고 깊은 뜻을 깨달아라. 행해주시니, 꺾고 보고 행하며 깨달아라.
15.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와 같이 행하셔도 그 오묘한 뜻을 모른다.
16. 자기가 스스로 행했어도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지 못한다. 행했다고 다 깨달는 것은 아니다.
17. 눈으로 보았다고 다 깨달았다고 볼 수 없다.
18. 어떤 것은 행한 것을 보여 주기만 하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로 근본을 말해 주지 않는다. 깨닫고 행하는 자만 더 얻고, 육도 영도 더 차원 높여 산다. 눈으로 본 자, 귀로 들은 자가 기도하여 물어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19. 깨달지 못하고 사는 자는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생명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자다.
20. 가령, 주가 말하는데 주를 깨달지 못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구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주를 알아야 죄 사함도 받고, 주와 일체 되어 그가 가는 길을 알고 가게 된다.
21. 가령, 10만 원짜리 수석을 샀는데 그 가치가 10억인지 모르면 20만 원을 받고 판다. 깨달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은 자다.
22. 주를 값없이 만났다고, 값없이 팔면 자기 손해다. 깨닫고 행하는 것과 깨달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큰 차이가 있다.

1. 하나님이 주신 것을 쓰고 행해야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
2. 만물들을 깨달아라.
3. 사람들을 깨달아라.
4.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깨달아라.
5. 깨달으라고 했으면, 깨달으려고 기도도 하고 신경을 쓰고 살아야 깨달을 것을 깨닫게 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기에게 어떻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깨달아라.
7.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중심해서 깨달아라.
8.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답답해하신다.
9. 깨달아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힘이 나서 기뻐하며 사랑해 주신다.
10. 깨닫지 못하면, 멍청한 자다.
11. 좋은 것과 감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돕다가도 중지하게 된다.
12.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에 대해 깨닫고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13. 성령님은 깨닫는 대로 시시각각으로 함께해 주신다.
14.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좋게 된 것이다. 주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
2. 지혜로 하면, 쉽게 한다.
3. 자기가 깨달을 것을 깨닫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여라.
4. 깨닫지 못하고 행하면, 평생 원했던 것을 놓치게 된다.
5. 깨닫도록 주께 간구하여라.
6. 주는 답이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면, 행하여라. 깨닫게 된다.
8. 미련한 자는 주가 행해도 깨닫지 못한다.
9.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10. 문을 닫을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문을 열 때가 되면 문을 연다.
11. 좋은 때가 순간순간 오고 간다. 이를 깨달아라.
12. 깨닫지 못하면 기다린 주가 와서 행해도 모른다.
13.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알아라.
14. 주의 몸이 직접 안 보여도 영으로 혼으로 함께하니, 깨닫고 행하여라.
15. 모르면, 기회를 놓친다. 깨달아라.
16. 시간을 쓰고 겪으면서, 시간이 황금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17.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하면,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해 준다.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진이 지나간 후에 집을 짓듯이, 환난 후에 축복해 주심을 깨달아라.
2. 환난 때는 이기는 일에만 전심을 다해야 된다.
3. 오신 신랑을 맞았으니, 하나님과 성령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어렸을 때 엄마 품 안에서 살듯이 살아야 된다.
4. 성령님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주의 사랑도 더 깨닫고 살아야 된다.
5.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온다고 깨닫고 준비하고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비하지 않고 행하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행한 대로 당했다.
6. 시간마다 그때의 할 일을 두고 행하기, 항상 하늘도 생각하고 땅도 생각하며 행하기다.
7. 깨닫고 행해야 후회 없이 기쁨으로 살게 된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자기 주관권에서 찾으라는 말은 자기 주관권의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2. 자기가 다스리는 곳은 자기 주관권이다.
3. 주인이기에 주인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4. 자기 주관권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5. 남의 주관권은 남의 것이라 얻기가 어렵다.
6. 하나님의 창조법칙을 보면, 모든 만물은 귀한 보물들이다. 창조의 이치는 다르지만, 같이 존재하게 창조해 놓으셨다.

7. 원하는 사람도 자기 주관권에서 찾아야 쉽다.
8. 자기가 쓸 정도의 원하는 자는 자기 주관권에 있다. 만들어진 자는 거의 없으니, 만들어 써야 그 원하는 자가 있다.
9. 자기 주관권이 그리 중요하다. 제1의 주인은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제2의 주인이 자기다.
10. 지구 세상 전체의 모든 만물과 인간은 자기 주관권의 보물덩어리다.
11. 존재물을 귀하게 보아라. 사람들도 귀하게 보아라.
12. 귀하게 볼수록 귀한 것을 알고 쓰게 되고, 보람 되게 살게 된다.
13.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귀하게 보고 늘 더 높은 차원을 생각하며 찾아라.
14. 찾고 행하는 만큼 새로운 것을 얻게 되고, 알게 된다.
15. 전능자의 생각대로, 성령님의 인도대로 주와 같이 살아야 기쁨과 사랑으로 육신 일생, 영 영원까지 살게 된다.
16. 결국은 전능자 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신다.
17. 오늘은 한 주관권의 말씀만을 잠언으로 받고 전한다. 지체로 비유해서 말하면,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격이다. 매일 깊이 읽고 행하여라. 행하는 대로 주신다. ※ 때가 되었으니, 지도자로부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시작하자.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있는 데서 찾으라는 말은 이미 준 것에서 찾으라는 말이다.
2. 알고 보면, 찾던 것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신 것이다.
3. 매일 귀하게 보고 행하지 않아서 안 쓰니, 잊고 산 것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잊으면, 줄 것을 주지 않으신다.
5.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잊은 자는 매일 귀하게 생각하고 살지 않아서 잊게 된다.
6. 자기 주관권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아라.
7. 찾기 불가능한 것도 자기 주관권 지역에 있음을 깨달아라.
8. 하나님은 지구 세상을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고로 어떤 곳이든지 개성대로 존재한다.
9. 육의 것은 육의 주관권에서 찾고, 영의 것은 영의 주관권에서 찾아야 찾는다.
10. 저마다 자기의 잃은 드라마를 찾아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네 주관권에 있다.
11.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시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많이 주셨다. 딴 것을 쓰느라 쓰지 않아서 잃은 것도 있으니, 찾아서 써라.
12. 드라마같이 열 개 중에 하나를 잃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빛나게 쓰지 못한다. 사람도 그러하고, 보물들도 그러하

다.

13. 가령, 한 팀의 운동선수들 중에서 한 명이 빠져나가면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섭리사 사람도 그러하다.

14. 찾으면, 이웃과 함께 잔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15. 쓰다가 잃으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아쉽다.

16. 사람도 물건도 구하고 찾는 자만 찾게 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감동을 주시어 찾게 된다.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랑으로 준 것을 잊지 말아라. 받을 때는 값이 적어도 후에는 갈수록 귀하고 비싸게 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받은 것은 모두 사랑해서 준 상징물들이다. 이를 늘 보며 사랑함을 깨닫고, 깨어 사랑 하여라.

3. 사랑하여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다.

4. 사랑해서 받은 것이 사랑의 증표다. 잊으면, 사랑이 죽는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을 잊으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 냉랭한 삶을 살게 된다.

6. 인생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사랑 때문에 태어났다.

7. 사랑이 식으면, 희망도 기쁨도 같이 잃게 된다.

8. 사랑이 식지 않으면, 계속 주신다. 영원까지 사랑이다.

9. 육의 사랑, 영의 사랑이다. 섭리사는 사랑의 역사다.

10. 사랑해서 인을 졌다. 인 맞은 자들은 병으로 치지 말라고 사탄에게도 천사에게도 명했다.

11.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인 맞은 자가 크다.

12. 사랑은 행해야 느낀다. 깨닫는다. 행해야 사랑의 능력도 받고, 힘도 받는다.

13.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사랑으로 받은 것이 크고,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

14. 사랑이 제일이듯, 그로 인해 받은 것도 그와 같이 귀하고 크다. 잊은 사랑도 찾고, 잊은 증표도 찾아 행해라.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잃은 것을 찾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증거하며 잔치해야 된다.

2. 어제 성령께서 주신 대(大)결작 돌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자가 하루 종 일 같이 일한 자들에게 주라고 사 온 옥수수와 음료를 판 데서 안 먹고 그 돌 앞에서 먹으면서 돌 사연을 이야기하라고 여건을 틀어 주셨다. 그들 앞에서 돌을 얻게 된 사연 이야기를 해 줬더니, 모두 나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을 받았다.

3. 하나님과 주가 주시면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잔치해야 된다.
4. 시대 말씀도 사랑함으로 줬으니, 모두 이웃을 불러서 가르쳐 주고, 새 역사와 주를 증거하면서 말씀의 잔치를 해야 된다.
5. 때가 되면 제대로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6. 예전에 안 됐다고 오늘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때가 되면 예전에 안 보였던 것도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심을 깨달아라.
7. 때가 됐으니, 찾고 보도록 생각하여라.
8. 때가 되면, 그 환경에 처하도록 여건을 틀어서 얻게 해 주신다. 주시면 이웃과 같이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감사하며 잔치해야 된다.
9. 사랑하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신다.
10. 316날 휴거시켜 주신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웃과 천 년 동안 늘 잔치해야 된다.

<2020년 8월 2일 주일 잠언>

1.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구를 중심한 천지만물의 세계도 ‘보이는 천국’이다.” 말씀하셨다.
2. 하늘 세계에도 천국, 지상 세계에도 천국이다.
3. 천국의 개념과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 하나님은 <하늘나라>만 천국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 세상과 천지만물>도 ‘육신이 사는 보이는 천국’으로 창조해 놓으셨다.
4. <지상천국>은 ‘육신이 사는 보이는 천국’이고, <하늘 천국>은 ‘영이 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다. 하늘 천국에도 지상천국 같이 땅과 하늘도 있고,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짐승들도 있다. 그러나 ‘영체의 몸을 가진 자들’만 살고 있다. 육신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다.
5. <육의 천국>은 ‘육신이 보고, 듣고, 살게 되는 나라’이고, <영의 천국>은 ‘영이 가서 보고, 듣고, 살게 되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영들이 원하는 구조로 창조해 놓으셨다. 육으로 가서는 볼 수 없다.
6. 천국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천사들’과 ‘천인들’이 산다. 천인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믿고, 그를 통해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한 자들이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다.
7. <하늘 천국>은 ‘모든 것을 깨끗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신령한 영의 세계’다. 반면, 이 세상은 ‘그러한 하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육의 세계’다. 세상에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같이 사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사는 지상의 천인’이다. <본문>
8. 예수님은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눅 17:21).”라고 말씀했다. 이는 ‘육신 천국, 마음 천국’을 말씀한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세상이 지상천국이고, 그곳에 사는 육신들이 지상 천인이니 ‘육신의 마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9.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천국이다.”라고 했다. 주님을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한 말을 깨달아야 된다.

10. 예수님은 천국 된 자신을 두고 여러 가지로 비유하시며 “내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했다. 마태복음 13장 31~4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비유로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으로 곧 천국이 되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세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룩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썩게 하니, 조심하라고 했다. 이어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세상 끝에는 인자, 곧 주가 천사를 보내어 가라지를 심판한다.”라고 했다.

11. 지난 주일에는 “네 주관권에서 찾아라. 있는 데서 찾아라.” 말씀했다. - <천국>도 그러하다. 육신의 천국은 ‘육신이 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육신의 주관권’에서 찾아야 된다.

12. <지상천국>을 깨달아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귀한 주관권’에 살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귀한 것을 모른다.

13. 어느 시대든지 <주>가 천국이고, <주의 주관권>이 천국이다. - 구약은 천국이 실현됐다고보다 천국 이상세계를 기다리는 세계였다. 신약 때는 ‘예수님’이 천국이었고, ‘예수님의 주관권’이 천국이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천국이고, ‘그 주관권’이 천국이다.

14.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다. 이를 해석하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좋은 씨 곧,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 밭에 뿌려 주며 천국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15.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땅의 사람’이지만, ‘천국의 천인’이기도 했다. 왜? 천국의 제도로 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도 이 나라에서 저 나라의 제도로 살면, 그 나라 사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천국 법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의 천인’이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서 천 년 역사를 이루는 자 역시 그러하다.

16. 예수님은 ‘천국의 천인’으로서 세상에 좋은 진리의 씨를 뿌렸다.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나쁜 씨가 났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주인은 “악한 자들이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자고 하니 주인은 말하기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가만히 뒤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살라 버리고, 익은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만사 그와 같이 행하신다.

17. 곡식이 익었으면, 추수 때가 온 것이다. 익었으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 ‘가라지 같은 성격들’을 다 뽑아 불살라야 된다. 그리고 ‘섭리사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자들’을 뽑아 불살라 버려야 된다.

18. 항상 추수 때 심판이다. 끝날에는 악을 심판하신다. 시대를 봐도 그러하고, 현실을 봐도 그러하다. 이때 악인을 신경 쓰지 말고, 의인을 신경 쓰고 주를 신경 써야 된다. 그래야 유익이고, 그래야 이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다.

19.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했다. 예수님이 전파한 이 말씀은 “내가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회개해라.” 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유대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지함으로 메시아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했다. 메시아 앞에 와서 회개해야, 육의 천국도 이루고 영의 천국에도 간다.

20. <천국>은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사는 세계’다. 신약 때는 ‘메시아 예수님’이 천국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사고와 생각과 말씀’으로 살면, 천인의 몸이 되었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지상에서 땅을 밟고 사는 것뿐이지, ‘보이는 천국’에서 ‘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21. 천국을 보려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해야 되고, ‘기도’를 신령하게 해야 된다.

22. 하나님은 천국을 보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보여주기도 하신다. 그러나 보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자 폐단이다.

23. 마태복음 25장 1~13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곧 천국이다.” 했다. 역시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천국으로 비유했다.

24. 어느 시대든지 ‘메시아’가 천국이다. 그러나 주를 모르는 자들은 ‘보이는 천국’은 맞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늘 천국’에만 가려고 한다.

25. 말씀을 깨닫고 봐야, 알게 된다. 깨닫지 못하고 보면 ‘메시아’를 봐도 모르고, ‘천국’을 봐도 모르고,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린다.

26. <신랑을 맞는다는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땅의 주’를 맞는 자가 ‘신령한 하늘 천국’에도 간다.

27. 주와 더불어 일체 되어 살 때 ‘천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를 통해 주시는 천국의 법으로 살아야 ‘천인’이 된다.

28. <육신 천국, 세상 천국>은 ‘주’로부터 시작된다. - 신약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신약의 천국’이 시작됐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보낸 자’가 천국이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가 주다. 그로부터 ‘성약의 천국’이 시작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29.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다. 이 역시도 ‘천국’만 보화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 인생의 보화임을 말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30. 주는 ‘세상 밭’, ‘마음 밭’에 숨겨 있다. 보화를 발견한 자가 보화를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듯이, 메시아를 발견했으면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된다. 메시아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권에 살지 못한다.

31. 메시아는 ‘절대 생명권에 속한 사람’으로 ‘절대 생명권에 속한 사람’을 만든다.

32. 마태복음 13장 45~46절에도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다. ‘좋은 진주’는 ‘좋은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고로 천국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구하는 장사’, 곧 ‘메시아’임을 말한 것이다.

33. 어느 시대든지 <주의 사명을 가지고 오는 자>는 ‘천국의 입장’으로 온다. 시대의 메시아도 영도자도 그러하다. 구약의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은 중심인물들’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나타나서 생명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들로 직접 행하게 하여 지상천국으로 이끄셨다.

34. 메시아는 ‘천국의 문’이다. 그를 통해 천국으로 간다.

35. 마태복음 13장 47~48절에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그물’이 되어 행하셨다. 많은 자들에게 ‘말씀의 그물’을 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했다. 예수님은 고기들을 끌어 올려서 ‘좋은 것’만 담고, ‘못된 것’은 버렸다고 했다. 사람도 그러하다. 천국은 ‘좋은 것’만 거르고 고르는 곳이다. ‘좋은 사람’은 천국에 담고, ‘못된 사람’은 풀무에 던져서 이를 갈게 하신다. <중요>

36.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만드는 것’이다. <환경>도 천국으로 만들고, <자기>도 천국의 천인으로 만들고 살아야 된다.” 하셨다.

37. <환경>만 ‘천국의 환경’으로 만든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이

룬다. 저마다 자기를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라.

38. <천인>은 절대 ‘선(善)’하다. 절대 ‘공의’롭다. 절대 ‘진리’로 산다. 절대 ‘사랑’으로 산다. 절대 ‘기쁨’으로 산다.

39. 천국의 천인과 살고 싶으냐? ‘주’와 같이 살아라! 주는 천국에 속한 천인이다. 그 마음도, 말씀도, 행실도, 사랑도 천국에 속한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으로 공의롭게 행하며 사랑으로 산다.

40. 지구 세상의 <환경>이 ‘보이는 천국’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에 살면서도 “괴롭다. 지옥 같다.”라고 한다. 왜? <자기 자신>을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다.

41. <환경>만 ‘천국’이 된다고 천국이 아니다. <자기>가 ‘천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42. <갖춰진 환경>에서 살아야 천국이듯이, <갖춰진 천국의 사람>과 살아야 천국이다. 혼자 있으면, ‘환경’이 천국이라고 천국의 삶이 아니다. ‘천국의 사람’과 같이 살아야 천국이다.

43. ‘죄’가 없어야 천국이고, ‘악’이 없어야 천국이다. ‘선(善)’해야 천국이고, ‘사랑’만이 있어야 천국이다.

44. <지상천국>도 시대성을 두고 발달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주신 말씀의 차원대로 ‘구약급 지상천국’, ‘신약급 지상천국’, ‘성약급 지상천국’으로 발달했다. 구약 때는 율법 아래 ‘종급 천국’이었고, 신약 때는 예수님의 말씀 아래 ‘자녀급 천국’이었다. 성약 때는 시대 보낸 자의 말씀 아래 ‘성약급 신부 사랑 천국’이다.

45. <천상천국>도 꾸미고 갖추기에 따라 ‘낙원천국’과 ‘황금천국’으로 구분된다. 환경뿐만 아니라 영도 그에 해당되게 만들고 갖추야, ‘그에 속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46.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천국’이다. <삼위가 보낸 자>가 ‘천국’이다. <주>가 천국의 주인이 되어 공의롭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다.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자>는 ‘천국에서 사는 자’다. <천국>이 네 옆에 있다. ‘시대 말씀’을 듣고 ‘천국의 생활’을 해라. <천국을 이루는 말씀>은 다름 아닌, ‘자기 연구의 말씀’이니라. ‘자기를 만드는 말씀’이니라.” 하셨다.

47. <환경>도 <사람>도 만든 대로, 그 차원대로 천국이다.

48. 자기가 자기를 ‘천인’으로 만든다. 만들되, 시대에 따라 그 시대 급으로 보낸 메시아를 통해 만들게 된다.

49. <천국>은 ‘혼자 만드는 세계’가 아닌, ‘상대적으로 만들어지는 세계’다. -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은 영의 황금천국이다. 지상천국은 사람이 만드는 천국이다. 자기가 땅에서 하나님의 상대가 되어 ‘육신 천국’을 이루면, 하늘에서도 ‘영의 천국’을 이루고 산다. - 상대성으로 일체 돼야 천국을 이룬다.

5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6000년 만에 <최고 황금천국>을 이루셨다.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땅의 주를 믿고 사는 땅의 천인들’이 천 년 역사를 이루며 같이 살아가고 있다.

51. 천국은 <슬기 있는 자>가 ‘사랑’으로 맞이한다. <미련한 자>는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천국을 맞이할 수 없다.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받지 못하니,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다.

52. <천국을 발견하고 기뻐 좋아하며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는 말>은 ‘자기 인생과 정신과 사고와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천국을 샀다는 말’이다.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고, 주와 같이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이다.

53. 하나님이 ‘제일 좋은 최고의 것’을 주셨어도 보통으로 알고 산다.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알아야 극적으로 기쁘고 좋고, 그 혜택을 보고 살 수 있다. 보통으로 알고 대하다가는 다른 길로 가기에 ‘해’를 받게 된다.

54.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 ‘하늘나라 천인들’만 생각하고 상상한다.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인들과 같이 살아도 모른다.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천인’이다. 그를 따르는 자가 ‘천인’이다.

55. <천국의 주인>과 일체 되면, ‘땅에 사는 천인’이 된다. 땅에서 하나님의 천 년사 뜻을 이룬 사람들이 ‘이 시대 천인’이다.

<2020년 8월 3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왜 주가 천국이겠느냐. 주로 말미암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3. 천국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져도 알고 누리며 산다.
4. 모르면 천국의 세계가 왔어도 모르고, 그 주관권에 살면서도 모른다.
5. 대개 천국에 가야만 천국인 줄 알지만, 지상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국이다. 또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천국이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육신도 육의 천국 주관권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영도 사망권에서 벗어나서 영의 천국 주관권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6. 하나님이 주를 쓰고 해 주신다. 그러니, 주가 천국이다.
7. 주가 천국이 되게 해 준다. 사랑과 진리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준다.
8. 주가 천국의 씨다. 천국의 머리다. 그와 일체 된 자는 그의 지체다. 그를 믿고 따르며 행하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진다.
9. 육이나 영이나 죄의 사망권을 벗어나면 생명권으로 나오게 되니, 천국이다.
10. 주로 말미암아 죄를 벗고 의에 속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11. 사랑도 진리도 하나님이 그 보낸 메시아를 통해 전하여, 듣고 행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12. 깨닫는 자는 주와 같이 천국에 살면서 매일 누린다.
13. 주를 떠나면 사망권 삶이다.
14. 메시아가 곧 천국이다. 그를 떠나면 사탄의 주관을 받아 죄 속에서 살게 된다.
15. 알지 못하면, 천국을 줘도 누리지 못한다.
16. 하나님과 성령님이 천국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떠나서 사는 만큼 사망권에 사는 자다.
17. 깨달도록 주의 말씀을 연구하라. 인식하라. 명심하라. 간구하여라. 주 안에서 자기 행위대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자기 삶과 생각의 차원대로 매일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2020년 8월 4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천국은 자기 행위대로, 믿음대로, 수고대로, 개성대로, 사명대로 이루어진다.

2. 주 떠난 천국은 자기 중심 삶의 세계다. 천국이라고 할 수 없다.
3.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보다 자기 마음에 있다. 주 안에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편해야 천국이다.
4. 천국인 주가 왔어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모른다.
5. 어떤 떡이 최고로 맛있다고 했는데 그 떡을 누가 사다 줘서 먹어도 그 떡인지 모르고 먹으면, 마음에 희망했던 것 같이 맛있지 않다. 그 떡을 먹은 후에 제일 맛있는 떡을 아직도 못 먹어봤다고 하니, 떡 장사가 얼마 전에 준 떡이 그 떡이라고 했다. 그제야 ‘아, 내가 제일 맛있는 떡을 먹었구나. 그런데 못 느꼈구나.’ 했다. 깨닫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낀 것이다. 이같이 천국에 살면서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가 천국이고, 이 세상이 천국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구 세상이 천국같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고 살아야, 그제야 천국을 느끼고 실감한다.
6. 자기가 극치로 원했던 것을 먹어도 모르고 먹으면, 마음도 몸도 만족치 않은 것이다. 주도 세상도 천국인 것을 모르면, 극치의 기쁨도 희망도 사랑도 모르고 못 느끼게 된다.
7.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안의 천국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다. 매일 배우고 깨달아라. 자기 삶의 터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8. 알았으면, 천국의 삶을 기술적으로 유능하게 살아야 된다.
9. 알았으면, 너도 잘 되니 걱정 말고 주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겨라. 잘됨이 네 앞에 오고 있으니, 기쁨으로 걱정 말고 살아라.

<2020년 8월 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천국에 살아도 가만히 있으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
2. 천국에서 살려면, 천국이신 주와 사랑 일체, 진리 일체 되어 같이 살아라.
3. 주의 뜻대로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이다.
4. 깨닫지 못하면, 지상 천국에 살아도 모른다.
5. 모르면 먹어도, 행해도, 그 주권권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다. 그에 대해 못 느끼니, 보람도 기쁨도 없다.
6. 어떤 자는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이루어져서 살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주가 천국의 삶을 살게 행해 준 것을 모른다. 모르는 자는 자기가 찾던 것을 손에 쥐고도 매일 찾는다. 개념과 정신이 딴 데 있어서다. 순간의 무지는 이해해도 매일 무지는 질 자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 자체 보석이 아니면, 언제 보아도 그 모양이다. 그 근본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얻으려고 매일 애간장 탄다.
7. 모르는 자는 죽은 자다.
8. 산 자는 근본을 제대로 안다.
9. 모르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와 같이 살지 않으신다.
10. 모르는 자는 답답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11. 모르는 자는 사탄이 주관하고 써 먹는다.

12. 모르는데 잘 된 자가 없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사람이 지금은 모르더라도 후에는 알고 제대로 살라고 역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신다.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기를 쓰고 행할 때 일체 되어 행하면, 모를 리가 만무하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오늘도 아는 자와 같이 성약역사를 이루고 가신다.

16.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네게 그렇게 행했는지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17. 아는 자는 삼위와 주와 일체 된 자다.

18. 어떤 자는 주가 자기 옆에 있는데 316날 월명동에 행사가 있다고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여 안 가고 있었다. 후에 ‘주가 천국이다’라는 주일말씀을 듣고 그때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하신 계시를 근본으로 깨달았다고 하며 주께 그 일을 고백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주가 사랑이요, 휴거요, 천국임을 알고 깨달아야 제대로 지상 황금천국, 천상 황금천국 삶을 살게 된다.

19. 살아도 그것이 천국의 삶인지 모르면, 천국의 기쁨의 맛도 보람도 없어서 천국을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며 산다.

20. 천국 안에 살아도 모르는 자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시원찮게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21. 결혼한 여인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형식과 외식으로 사랑하고 생각을 딴 데 두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랑을 시원찮게 실 가닥같이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후에 육 일생, 영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22. 흐르는 물의 줄기가 실 가닥 같다면, 강이 아무리 커도 ‘강이다.’, ‘큰 냇가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 이와 같이 사랑도 실 가닥 같으면, 사랑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사랑과 휴거가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주가 왔는지 모르고, 주인인지 모른다. 많이 행하고, 크게 행하고, 불같이 행하고, 장마철의 냇물같이 행해야, 인정하게 되고, 깨닫고 행하게 된다.

23. 황금천국이 주다. 왜 그러한지 깨달아라. 본인이 주와 일체 되어 행하는 자일수록 더 알게 된다.

24. 조금 하면, 맛만 안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조금 사랑하고, 그 말도 조금만 실천하면 황금천국인지 모른다.

26. 장마 때 냇물과 강물을 보아라. 그래야 장마인지, 홍수인지,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물이 실 가닥같이 흐르니 모른다. 그때 찍어 놓았다가 후에 보면서 알아라.

27.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듣고 뜨겁게 같이 행하며 삼위도 주도 그 사랑도 천국임을 깨달아라.

28. 말씀을 줄 때, 깨닫게 해 줄 때 모르면, 평소에도 모른다. 태풍 때 장대비를 퍼부어줄 때 모르면, 날이 좋은 날에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

29. 그 주간마다 주시는 말씀의 때 그에 대해 모르면, 모르게 된다.

30. 모든 잠언은 성령님과 주가 한 명 한 명에게 깨닫고 제대로 하라고 친히 전한다.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황금천국’과 ‘천국이 아닌 곳’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생긴 것이 다르다.

2. ‘진짜 천국’과 ‘가짜 천국’이 다른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 생긴 것과 모양이 다르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이 다르다.

3. 지구가 천국이다. ‘진짜 천국인 지구’와 ‘천국이 아닌 다른 별들’이 다른 것은 지구가 아닌 별에는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도 없다는 것이다.

4. 갓출 것을 갖춰야, 황금천국이다. 황금천국은 일반 천국과 갓출 것들이 다르다.

5. 월명동도 갓출 것을 갖춰서 환경 천국이다. 미인도 갓출 것을 갖춰야 미인이듯이, 천국도 갓출 것을 갖춰야 황금천국이다.

6. 비싼 돌도 갓출 것이 다르고, 모양과 형상이 다르다. 천국도 갓출 것을 갖춰서 천국이듯이 월명동도 모두 보고 “천국이다.” 하는 이유는 탄 곳보다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명당지도 모양을 갖춰서 “명당이다.” 한다. 주도 갓출 것을 갖추고 생긴 것이 달라서 주다. 주는 말씀의 강도가 절대적이고, 사랑의 절대자이고, 마음과 생각을 갖췄다.

7. 천국을 알게 되고, 지구 천국을 알게 되고, 성약 천국 핵심지를 알게 됐다.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시대 말씀을 듣고 나서 재미없게 살기도 하고, 재미있게 살기도 한다. 자기 차원대로 산다.

<2020년 8월 9일 주일 잠언>

1.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하시면, 속히 행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시지 않거나, 임하시지 않았을 때는 할 일을 두고도 속히 행하지 않게 된다. 이는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이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항상 속히 판단하게 되고 감동이 되어 속히 행하게 된다.

3.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빠르게 행하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빨리 행하는 것’이 특징이자, 특기시다.

4. <이 시대 주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믿고, 속히 행한 자들>은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부터 성약역사에 올라타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누리며 휴거까지 이뤘다. 반면, <주를 빨리 믿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지금도 저 기성에서 해그늘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자기중심과 자기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겨우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의 구시대의 말씀만 믿고 남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

5. 만일, 우리가 <시대 주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믿고 행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 기성에서 ‘옛 사고’를 고치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고, 기성 바다에서 형제들과 노를 저으며 나름대로 천국을 이룬다고 하면서, 험한 파도와 싸워가며 환난을 이겨야 된다고 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들이다.<시대 주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믿고, 속히 행했기 때문에 ‘현실’에 이르기까지 성장했고, ‘큰 은혜의 휴거 역사’를 이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시대 신부’가 됐다. 이를 잊지 말고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만족하며 보람 있게,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감동대로 살아야 된다.

6. 인생은 <자기 할 일>을 두고 속히 행해야, ‘얻을 것’을 얻고 ‘누릴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에 맞춰서 ‘그 나라의 뜻’을 이루게 된다.
7. 저마다 <자기가 행할 일들>을 두고 속히 행해야, 빨리 쓰고 오래 누린다. 영에 속한 일들, 육에 속한 일들, 건강에 속한 일들을 빨리 행해야 천국을 속히 이룬다. 또한 <주께 해당되는 일들>을 빨리 행해야 천국을 속히 이루고, ‘영육 건강한 천국 생활’을 하게 된다.
8. <행하지 못하는 자>는 몰라서 못 행하기도 하고, 알아도 속히 해버릇하지 않아서 못 행하기도 한다. 또 이것저것 따지며 행하지 않는 자도 많다. 목적은 생명이니, ‘목적’을 향해서 속히 행해야 된다.
9. 때가 됐으면, 속히 행해야 된다. 속히 행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10. 늦게 행하면, ‘제2의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것으로 삼고 행한다.
11. 속히 해 놓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속히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도 이루고, ‘자기 목적’도 이룬다.
12. <속히 행하라는 말>은 ‘속력을 내서 행하라. 속도를 높여서 행하라는 말’이다.
13. <생각>과 <행동>을 빠르게, 속히 행해야 된다. 가령, 차를 타고 가다가 홍수가 나서 물이 차 안으로 들어오면, 속히 문을 열고 뛰쳐나오든지 차 지붕으로 올라가야 된다. 늦으면 문도 안 열리고, 차 시동이 꺼져서 움직일 수도 없다. 이때는 ‘생각’이 번개처럼 돌아가서 속히 판단하며 행해야, 산다.
14. 모든 일을 할 때는 ‘뇌신경’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 고로 머리가 지체보다 빨리 행한다. 그리스도는 머리이기 때문에 손보다 빠르고, 발보다 빠르고, 귀보다 눈보다 입보다도 빠르다. 그러므로 ‘주’와 일체 되어 행해야, 속히 행하게 된다.
15. 주와 심정 일체 되어 행해야, 속히 행한다. <중요> ◎ <속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16. <준비하고 예비해 놓는 것>이 ‘속히 행하는 것’이다.
17.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행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행할 수 없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바로, 즉시 행하신다. 그러므로 ‘준비해 놓는 것’이 지혜요, 슬기다. ‘준비해 놓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고, 아이큐가 높은 사람이다.
18.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때가 됐을 때 즉시 기뻐하며 행하심을 깨닫고, ‘마음 준비’, ‘행실 준비’를 완전히 함으로 신부 된 삶을 살아야 된다.
19. <속히 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다.
20. 항상 사탄보다 빨리 행해야 된다. 사탄은 6수고, 사람은 7수다. 그러니 하기만 하면, 사탄보다 빨리할 수 있다. 사람이 빨리 못하면, 그다음에는 사탄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늦으면, 사탄에게 걸리고, 묶이고, 잡힌다.
21. 힘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적극성이 있어도 ‘빨리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속히 행하여라.
22. <지혜>를 받아야, 속히 행한다.
23. <지혜>는 번뜩번뜩, 번쩍번쩍 빛같이 떠오른다. 그러므로 지혜를 받으면 빨리 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하면 할 수 없던 일도 할 수 있다.

24. <지혜>는 ‘막는 자’가 없다. 차원이 높아서 높이 행하기 때문이다.

25. <지혜>는 ‘아는 것 안에서 그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다. 지혜의 종류는 수백 가지다. 어떤 자는 공부의 지혜, 어떤 자는 운동의 지혜, 어떤 자는 일의 지혜, 어떤 자는 예술의 지혜가 있다.

26. <지혜>는 빠르다. ‘빠르기를 겸하지 않은 지혜’는 없다.

27. <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2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혜의 근본자’이시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행하라는 말’이다.

29. 지혜롭게 하면 행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한숨을 쉬고, 마음의 통곡을 하고 있다. 지혜로 하면, 어렵지 않고 쉽게 하게 된다.

30. 운전을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자기 속도’, ‘상대 속도’를 알아야 되고, ‘속도 계산법’을 알아야 된다. 가령,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릴수록 앞 차와의 간격을 두고 달려야 된다. 인생이라는 자기 차도 빨리 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뛰어야 된다. 잘못하면, 빨리하다가 사고가 난다.

31. 지도자들은 또 보고, 또 살피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지혜로 행해야 된다. 늘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행해라.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잘못하면, 다른 것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

32.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때가 됐다. 속히 행하여라. 무엇을 빨리 행해야 하는지는 주일말씀을 듣고 깨닫고, 각자 연구하고, 기도하여 깨달아라.” 하셨다.

33. 성령님은 매일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감동시켜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교류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 또 하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해 주겠습니다.

34. 때가 오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핵심으로 목적인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속히 행하는 것’이다. 행하다 보면 ‘환경’도 좋아지고, 성령님이 ‘여건’을 틀어 주셔서 행하게도 하신다.

35. 성령님은 불의가 아닌 이상,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로 환경과 여건을 틀어 주신다. 그 대신, 해 주신 만큼 성령님을 사랑하고, 일체 되어 행해야 된다.

36.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기다리며 행해야 된다. 주는 늘 도적같이 오시고, 그 욕도 영도 합당하게 오신다.

37. 사람이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만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못 이룬다. 좋은 환경만 원하고 행하면, 때를 놓치게 된다.

38. <자기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을 이루는 것’이 뜻이니,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홍수난리가 나든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든지 감행하고 행하며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 이것이 ‘속히 행하는 비법’이자,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비법’이다.

39. 섭리역사 42년 동안 ‘주’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행하지 않았다. 목적을 이룰 때마다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극심했다. 그렇다고 안 좋은 날이 다 지나가고 행하려니, 핍박과 악평이 끝도 없었다. 그러므로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틈틈이 속도를 내서 속히 행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어도, 환난과 핍박이 왔어도 때가 됐으면 행해 버렸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고 말았다. 하

나님의 창조 목적 휴거역사를 이룰 때도 ‘주의 여건’도 안 좋았고, ‘따르는 자들의 여건’도 안 좋았다. 선생은 옥에서 맞았고, 따르는 자들은 주가 없는 데서 맞았다.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았어도, 그 위치에서 6000년 동안 기다렸던 때를 맞고 행했다. 행하고 보니, 잘했다.

40. 무엇을 속히 행해야 될까? - ‘이 시대의 할 일’을 속히 행하여라. ‘자기에게 허락된 일’을 속히 행하여라. 나머지는 성령님이 때마다 감동시켜 행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 주신다. 또 각자 속히 행할 것들이 생활 가운데 보이고, 들리고, 부딪힐 것이다.

41. 성령님이 자기 입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사람이 없을 때는 자기를 감동시켜 자기를 통해 말하게 하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하시는지 알게 된다.

42. 어느 때는 몇 달, 몇 년 동안 기다렸던 기회가 몇 분에 지나가 버린다. 그때 그 순간, 찰나에 지나간다. ‘예비하고 준비한 자’와 ‘속히 행하는 자’만 기회를 잡고 행하게 된다. <마무리>

43.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원하던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 ‘순간의 때’를 주니, 너는 속히 재촉하여 행하여라.” 하셨다.

44. 속히 행하는 것에 대한 성경을 읽어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정말로 속히 행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몸’이 되어 행해야 된다.

45. 때가 되면, 할 일을 놓고 서둘러서 재촉하며 속히 행해야 문제가 없다. 소돔 땅의 롯도 심판 전에 ‘하나님이 재촉하여 도망가라고 지시하신 곳’으로 속히 도망가서 살았다.

46. <주의 말씀을 듣고, 속히 깨닫고 믿고 따른 자>는 바로 축복을 받고, 사망권을 벗어나게 됐다.

47. 만물과 사람을 관리할 때도 ‘속히 해 줄 것’을 해 줘야 더 이상 문제가 안 일어난다.

48. 생각이 빨라야, 몸도 빠르다.

49. 지혜롭고 적극적인 자가 빨리하게 된다.

50. 가장 속히 하는 자는 ‘미리부터 해 놓는 자’다.

5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준비된 자’와 행하신다. ‘절대 믿는 자’와 행하신다. ‘끝까지 하는 자’와 행하신다. ‘예비해 놓고 기다린 자’와 행하신다.

52. 6000년 종교역사를 보면, 특히 아벨을 중심한 우리 선조들은 믿고 행하는 데 발 빠르게, 생각 빠르게, 몸 빠르게 행해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왔다. 우리도 그 후손들로서 ‘이 시대의 할 일’을 속히 행하며 더 좋은 천국을 만들고, 더 좋은 천국의 사람이 되어 육신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최고의 이상을 이루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53. 주는 구시대보다 성경을 빨리 깨닫고 외쳤다. 42년 전부터 제때 맞춰서 시대를 깨닫고 외쳤다. 주가 얼마나 빠르냐. 구시대에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빨리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행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빨리 깨닫고, 속히 행하는 자’를 쓰고 행하신다.

54. <주와 함께하는 자, 주의 심정을 아는 자>는 주와 일체 되어 빨리 행한다. 빨리 행하는 자는 얻고, 즐거워하며 주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

55. <빨리 깨닫고, 속히 행하는 자>가 ‘주’도 빨리 따르고, ‘자기 소원’도 ‘가정의 소원’도 이루며 지상천국을 이룬다.

또한 천상천국도 이루고 휴거까지 된다.

56. 가장 큰 것은 ‘주’를 빨리 발견하고 깨닫고 그 마음과 심정을 앎으로, 자기도 ‘주의 대상’이 되어 속히 행하는 것이다.

57. <속히 행하라는 말>은 ‘할 일이나 시킨 일들을 생각나는 즉시 하라는 말’이다.

58. <속히 행하라는 말>은 ‘자기 할 일, 하나님과 성령님이 명하신 일, 영감을 준 것, 생각난 것들을 빨리 속히 시작하라는 말’이다.

5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혹은 ‘축복’을 주기 위해 속히 행하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어 속히 행하게 하심으로 ‘생명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거나 ‘축복’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 눈치를 못 채기도 한다.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속히 하라는 말>은 ‘급하니, 속히 하라는 말’이다.

2. <속히 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이니, 속히 하라는 말’이다.

3. <속히 하라는 말>은 ‘때가 됐으니, 미루지 말고 어서 해야 되기에 속히 하라는 말’이다.

4. <속히 하라고 하신 이유>는 속히 하지 않으면, ‘적’이 와서 해를 주고, 죽이고, 잡아가기 때문이다.

5. <속히 하라고 하신 이유>는 속히 하지 않으면, 갈그미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치듯이, ‘상대, 적’이 자기 것을 빼앗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느고 왕이 행하듯 속히 행해야 된다.

6.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속히 행하는데, <도움을 받는 상대>는 무지로 오해하다가 처음에는 사명자의 뜻대로 하더니 모사를 써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하지 않으니, 사명자와 싸우다가 ‘도움받는 상대자, 요시아’가 죽었다.

7. 속히 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행하신다.

8.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자기가 소원하던 것’을 느고 왕을 통해 행하시고 해결해 주시는데, 믿지 못하고 자기 나라와 싸우는 줄 알고 오해했다.

9. 오해하면, 자기가 ‘그 해’를 받는다.

10. 자기를 위해 하는데, ‘자기에게 해를 주는 자’로 오해했다.

11. 하나님과 주의 명을 받고 자기를 위해 행했는데, ‘자기에게 해를 주는 자로 오해한 자들’은 요시아 왕같이 육도 영도 사망의 해를 받게 됐다.

12.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 느고 왕을 통해 행하셨듯이, 한 ‘개인’에게도 그가 해 놓은 것이 조건이 되어서 주를 통해 행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도 그리 오해했다.

13. <오해(誤解)>는 오히려 ‘해((害))’가 된다.

14. <사명 받은 자>가 ‘느고 왕 같은 입장’이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원하는 자>가 ‘요시아 왕 같은 입장’이다. 저마다 이를 분별하여라.

15. 성령께 물어보고, 주께 물어보고 행해라.

16. 요시아 왕은 평소에 애굽을 적대시켰기 때문에 느고 왕이 자기를 돕기 위해 왔어도 오해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적대시 생각하고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인이라도 어느 때는 최고 가인을 치는 데 쓰신다. 잠언과 성경 본문 역대하 35장을 잘 읽고, 저마다 깨달아라.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속히 행해야, 속 시원하다.
2. 주와 일체 된 자는 느고 왕 같은 사명자다.
3. 하나님은 무서운 코로나 병이 비가 많이 오게 하여 씻어 없애 주신다. 무지 속에 상극하며 오해하지 말아라.
4. 느고 왕은 오해한 요시아 왕에게 활을 쏘지 않았다. 느고 왕 편의 한 군사가 요시아 왕을 쏘았다.
5.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행해 주시는데도 이를 깨닫고 행하지 못한다.
6. 역대하의 가장 근본을 깨달아야 된다. 이 사건을 통해 실제 주인이 둘이나 온다는 것을 알아라. 상대 주인과 본 주인이다.
7. 무지 속에 상극하지만 알아도 큰 축복이다.
8.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와 싸우면 자기 손해다.
9. 주가 행한 일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좋아서 따라야 된다.
10. 말씀을 해 주어도 처음에는 믿고 가다가 다시 자기중심으로 행하면서 가기 때문에 문제다.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하라고 한 것은 어서 속히 해야 된다.
2. 빨리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3. 속히 해야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
4. 불이 났을 때 즉시 불을 끄듯이, 해야 될 일들은 미루지 말고 해야 된다.
5. 지도자들이 모여서 밀린 일들을 서둘러서 재촉하며 행했더니 하루에 23가지나 했다. 그 다음날 7가지를 해서 모두 할 일이 끝나니 그때부터 장대비가 오기 시작했다. 비가 와서 그때 계획한 일이 있을지라도 못할뻔했다. 이를 동안 30여 가지 일을 빨리했기에 비가 오기 전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때 속히 해야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할 수 있다.
6. 할 일들을 속히 해야 얻을 것을 얻고 누리게 된다.
7. 빨리해야 그만큼 빨리 얻고 보람을 누리며 살게 된다.
8. 할 일을 속히 해야 그다음 할 일을 순서 있게 또 하게 된다.

9. 할 일이 생각났을 때 속히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된다.
10. 할 일을 제때 안 했더니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두 달간 못하게 됐다. 모두 각 개인의 일이나 섭리사의 일들도 그러하게 된다.
11. 때가 지나면 환난 때문에 못하고, 여건이 안 되어 할 수 없게 된다. 지난날을 보아라. 할 일을 못 한 것은 지금도 못 누리고 있고, 할 일을 한 것은 다음 것도 행해 놓고 보람 있게 살고 있다.
12. 하나님에 속한 일들은 정말 속히 해야 된다. 안 해 놓으면 그로 인해 어려움이 닥쳐온다.
13. 자연성전 하나님의 전도 하라고 할 때 속히 했기에 섭리인들이 때에 맞춰 일찍부터 쓰게 되어 새 시대에 많은 생명을 오게 했다. 이와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속히 해야 유익이 많다.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적이 있을 때만 속히 하지 말고, 급할 때마다 속히 해야 된다.
2. 할 일을 속히 하는 자는 원하는 것을 속히 얻는다.
3. 성령님도 주도 속히 행하니, 그와 일체 되려면 속히 행해야 된다.
4. 겨누는 상대가 있으니, 속히 행하여라. 그래야 승리한다.
5. 속히 행해야 문제가 더 일어나지 않고 해결된다.
6. 기회의 때다. 고로 빨리, 속히 해야 된다.
7. 환난 전에 먼저 속히 해야만 문제가 방지되고, 해결된다.
8. 갈그미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전에 느고 왕이 먼저 속히 쳐야 했다. 이와 같이 사탄과 악한 편이 행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하라고 한 것을 먼저 속히 해야 된다.

<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시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앞날을 아시니, 미리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틀고 조종하여 행하게 하셨다.
2. 날짜를 정해 놓았어도 그날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 못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미리 행하게 하셨다. 지혜로운 자는 이를 알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해주어 알게 해 준다.
3.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앞날에 예정대로 좋게 행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미리 행하게 하신다. 그날이 오면 행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니, 하나님은 그제야 미리 행하셨음을 깨닫게 하신다.
4. 일이 닥쳤을 때 행하면 늦으니, 미리 작게라도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이시다.
5. 정한 날에 행하면, 여건상 환난도 어려움도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 미리 그전에 만났을 때 은밀하게 해 줬다. 그런데 크게 못 했다고 기다리고 있다.

6. 심판도 축복도 이미 은밀하게 했어도 모른다.
7. 하나님은 2000년이 되기 전에 1978년부터 20년 동안 미리 행하셨다.
8.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아는 자들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한 때보다 미리 하셨다.
9. 하나님은 항상 합당한 때 행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는 우리가 행하려고 생각한 때와는 다르다.
10. 행할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알고 미련 없이 행하여라.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두고 미리 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미련 없이 마음을 쏟아서 하여라.
2. 하나님이 왜 미리 행하시겠느냐. 그 일의 합당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3. 어제든 어떤 일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행하신다고 하셨기에 이를 깨닫고 할 때 끝장나게 행했다.
4. 어떤 일의 전초를 다 하고 나서 그 일을 조금 행했으면, 조금만 행했어도 전초가 아니고 핵을 두고 행한 것일 때가 많다.
5. 어떤 일은 핵인 줄 알았더니, 전초인 것도 있다.
6. 항상 성령님도 미리 행해 놓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크게 하게 하신다. 전체를 모두 그리 행하신 것을 깨닫고 행하여라.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사에 모든 일은 미리 하면 조금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다.
2. 미리하지 않으면, 피해를 당한 후에 하기 때문에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그러므로 미리 행하여라.
3. 미리 방지하여 행해야 모기도 안 물린다. 물린 후에 행하면, 간지럽고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다.
4. 하나님은 현실의 섭리사의 축복된 삶을 위해 미리 행하게 하셨다.
5. 항상 성령님과 주같이 미리 서둘러 행하여라.
6. 현재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일을 아시고 미리 행하셨다.
7. 성령님은 미리 행하게 하시어 내 것이 되게 하셨다.
8.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중심대로 공의롭게 살지 못하고, 섭리사의 인 맞은 자들을 억울하게 괴롭힌 자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괴롭게 하여서 주를 통해 심판하셨다. 그들의 괴로움은 다섯 달 동안 전갈이 쏘는 것같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9. 하나님은 미리부터 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며 무고하게 섭리사를 괴롭게 한 자들을 매일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은 성령님과 함께 세계를 미리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행해 오셨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같이 행하신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세계 가운데 한 민족을 미리 택하여 사랑하시고, 돕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 한 나라를 중심하여 다른 나라들도 잔치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3.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나라 중에서 한 종교를 중심종교로 미리 택하여 사랑하시고, 돕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4. 하나님과 성령님은 중심 종교의 모든 자들 중에서 한 교회, 혹은 한 부서를 미리 택하여 사랑하시며 영화롭게 해주기도 하신다.
5.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날마다 행한 대로 각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며 영화롭게 해 주신다. 그로 더불어 그 주관권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며 영화롭게 해 주신다.
6.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특히 그 생명을 위해 사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었다. 이를 모르는 자들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대해 주시지?” 한다. 내용을 알고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고 주를 통해 그같이 대해 주시는 것이다.
7. 탕자가 오랫동안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탕진하고 회심하고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해 주며 사랑해 주고, 영화롭게 해 주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왜 나를 위해서 안 해 주시지?” 하고 불만했다. 아버지는 “너는 평소에 항상 먹고 마시지 않았냐.”라고 했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뜻이 있어서 한 생명을 잘 챙기시는데 그 꼴을 못 보는 자들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그 생명의 심정을 너무도 모르는 자다. 자기 것이나 받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항상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공의롭게 해 주신다.
9. 하나님이 느고에게 명하여 속히 행하라고 하신 것같이 다 뜻이 있어서 행하신다.
10. 생일날이 돌아와서 도리상 대접해 주는데, 객이 같이 먹으면서도 불만을 한다. 자기 친구의 생일인지 모르고 행하면, 실수하게 되고 불만도 하게 된다.
1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를 통해 행하심을 깨닫고 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
12. 하나님은 행위대로 각 사람을 미리 택하여 개성대로 선악으로 갚아주시는데, 무지한 인생들도 섭리인들도 이를 잘 모른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무지한 자와 같이 행하지 않으신다.
14. 요셉으로 인해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도 들었다. 하나님이 요셉을 중심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그같이 행하셨다.
15.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까지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다. 그 시대에 누가 이리됨을 알았겠느냐. 주를 절대 믿고 온전하게 행한 자들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한 자들을 두고 짐승 같다고 하셨다. 짐승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16. 하나님은 미리 택한 자로 인해 그 주관권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이를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쪼개서 미리 의롭게 한 자만 사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17. 섭리사에서도 항상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과 어긋난 자들과 정서가 불안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생명길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사망의 넓은 길로 갔다.

18. 이 시대도 의롭게 하기 위해 미리 택한 자를 중심하여 그와 일체 된 자들을 행한 대로 사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데 이를 알지 못한 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게 하고, 악평하고, 미워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들의 날을 정하시고 괴롭게 하여 심판을 하시며 때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전같이 쏘는 고통을 주신다. 확대시켜서 하나님과 성령님은 세계에서 한 민족, 한 종교, 한 가정, 한 사람을 미리 택하여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 이를 알고, 주를 따라 성령과 같이 행해야 된다. 자기도 전에 다 의롭게 하여 사랑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 것을 깨달아라. 모두 자기 한 명, 한 명에게 해 준 말씀을 알아야 된다. 깨닫지 못한 자는 괴롭게 하심을 알아야 된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지금 이 시대는 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알게 하시는 때이며 심판받는 자를 알게 하시는 때다.
2. 종교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괴롭혀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알게 하셨다.
3.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니,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고 괴롭혔다.
4. 아벨이 잘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었다.
5.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니,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괴롭혔다. 하나님은 양심심판을 하시고 노아에게만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예비하게 하셨다.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모두 죽었다. 그 시대 모든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는 지를 깨닫게 하셨다.
6. 모세가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 알게 되었다.
7.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르는 자들도 가나안 31개 족속들도 알게 해 주셨다. 이는 “너는 극히 담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켰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는 그 말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8.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시대로 알게 하셨다.
9. 이삭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주권권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까지 알게 해 주셨다.
10.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밋단아람 사람들에게도 외사촌에게도 알게 해 주고, 후대까지 알게 해 주었다.
11. 요셉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도 알게 하시고, 요셉을 미워했던 형제들에게도 결국 그가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시는 자임을 알게 하셨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고생했지만, 그에게 총리직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임을 애굽 전체 온 국민이 알게 하셨다. 바로 왕도 깨닫고 알고 시인하게 하셨다.

<2020년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2.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환난과 핍박 때 더 사랑해 주신다. 하지만 받는 자는 아무 어려움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해 줘야만 사랑받는 줄로 생각한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생각대로 해야 제대로 깨닫고, 환난도 이기고, 각종 어려움도 이긴다.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사랑해 주심이 얼마나 중하고 큰지 깨달아라.

5. 그 시대가 다 심판 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노아같이 롯과 같이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다. 노아는 심판 때 그 시대의 땅을 다 얻었고, 롯도 그러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이 사라졌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사랑하는 자는 삼위와 주의 몸이 되어 육신도 그 나라 천국을 땅에서 누리고, 영은 황금천국에서 누린다.

7.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사랑함을 알리기 위해 ‘사랑하는 자’에게는 각종 병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만 각종 병과 어려움을 주어 고통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신다.

8.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줬는데도 거부하면, 그때는 더 심판하여 죽이기도 하시고, 경제나 각종 병과 괴로움으로 더 치기도 하신다.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힐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듯이 행하신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때다.

<2020년 8월 30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은 홍수심판 후 노아와 그 아들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우리니, 나의 언약은 너와 생물들까지니라. 다시는 홍수로 사람과 생물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언약으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나니, 이것이 너와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에게 언약 세운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언약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리라.” 하셨다.

2. 노아와 그 아들들은 홍수심판 이후 검은 구름만 끼면, “하나님이 혹시 물로 심판하시나?” 하고 무서워했다. 이에 하나님은 비가 와도, 먹장구름이 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다시는 홍수로 너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다. 그 후로 노아와 그 식구들은 하나님이 홍수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을 무지개로 약속받고, 비바람이 쳐도 검은 구름이 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

3.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셨다. 노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셨다. 특히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 때문에 심판하셨다. 아담 때도 그러했다.

4. 노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며 무엇인가를 약속하신다. - 이 시대의 무지개는 ‘노아 때같이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되고, ‘잘 되고 형통되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도 된다.

5.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이실 때는 ‘홍수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해당되는 심판의 증표’를 나타내신다.

6. 성령님은 선생에게 계획적으로 무지개를 보이셨다. 내 생애 그같이 선명하고, 큰 무지개는 처음 봤을 정도로 또렷했다. 무지개가 겹쳐있는 대둔산을 쳐다보니, 용문골 골짜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쭉 생각났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지금은 내가 홀로 외롭게 있지만, 세계에서 수많은 자들이 밀려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을 들을 것이다.” 하셨다. 결국 그 약속대로 됐다. 또 대둔산에서 기도할 때, 세계적인 왕을 뽑는데 내가 겨루기에 이겨서 왕이 되는 광경을 보았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다. 그 외의 많은 현실의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됐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 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무지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같이도 보였고, 금주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졌다.

7. 하나님의 약속과 증표는 무지개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다. 시대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나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잘 되고 형통하리라. 심히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잘된다는 증표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하라.” 하셨다.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잘되는 증표를 보이신 것이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들으면, ‘잘되게 해 준다는 약속’을 생각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야곱>은 잘되고 형통하게 해 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증표로 ‘돌기둥’을 쌓아놓고 기도했다. 그대로 되고 말았다. 돌기둥이 증표로 남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시고, ‘주신 그 이름’을 증표로 삼으셨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야곱을 생각하시며 늘 축복해 주셨다. <요셉>에게는 잘 되는 증표로 ‘꿈’을 주셨다. 요셉에게는 항상 꿈을 통해서 언약을 보여주셨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후손들까지 잘되게 해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증표로, 여러 가지 증거물로 언약을 남기셨다.

8. 하나님께 증표를 받아야 확실하다. 증표를 안 받으면, 가다가 흔들린다. ‘잘 된다는 증표’, ‘심판을 안 하신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9.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증표를 보실 때마다 늘 사랑해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증표를 보실 때마다 심판하고 싶어도 심판을 안 하신다.

10. 하나님은 홍수심판을 하시고, 그 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다시는 물이 심판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다. - 저마다 무엇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았든지 심판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로 인해서 책망치 않고 심판치 않는다는 증표를 받아야 된다.

11. 증표는 ‘땅문서’와 같고, ‘하나의 약속 문서’와 같다.

12. 증표를 받았으면, 그 언약과 증표를 잊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이야기도 해야 된다.

13. 하나님은 ‘꿈’에서도 증표를 보이시고, 낮에 ‘만물들’을 통해서도 보이신다.

14.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약속대로 잘 되고 형통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하나님께 약속받지 못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그대로 나가게 두지 않으셨다.

15. 이 시대 섭리사의 증표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천 년 역사를 아는 ‘시대 말씀’이다. 시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는 말씀의 증표를 받은 자다. 둘째, ‘시대 보낸 자’가 증표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 보낸 자가 사명을 다하도록 역사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자연성전’이 증표다. 하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두겠다고 하셨다. 땅에 하나님의 궁전을 세웠으니, 이 또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증표요, 천 년 역사의 증표요, 휴거된 섭리사의 증표다. 넷째, 정말로 휴거됐는지 아는 증표가 있으니, 이는 역시 ‘사랑의 증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휴거된 증표다.

16.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무지개를 증표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 약속대로 지금은 아무리 홍수 난리가 나도 물로 천하를 덮어서 몽땅 멸하는 일은 없다. 모두 멸하는 것이 무섭지, 홍수로 인해서 손해가 가는 것은 미리 방지만 해 놓으면 괜찮다.

17. 오늘날 코로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코로나의 고통을 심하게 받지 않는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증표였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대로 했는지를 보시고, 스스로 조심한 사람들은 증표를 받은 자로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다.

18.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시대 말씀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19. 하나님께 약속받지 못한 자들은 아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예 그리스도의 자손이 될 수 없고, 이 시대 메시아의 자손이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늘을 뚫는 듯한 교만과 거만함과 자기 주관이 있지만, 하나님께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20. 이 시대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섬겨야 된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있기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

21.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자기 사상을 우상시하는 자들'과 '그릇된 자를 따르는 자들'을 계속 심판한다고 하셨다. 결국 그들은 굴복하고 만다.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은 약속, 즉 언약과 증표이시다.

2. 증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되고, 안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안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증거물이 중하고 귀하다.

3. 하나님이 주신 증거물은 하나의 땅문서와 같다.

4. 하나님과 성령님은 약속을 말로도 하시고, 그에 속한 증거물로도 주신다. 증표를 잊으면, 제대로 약속대로 못 살게 된다.

5. 저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약속하시고, 그 근거로 증거물을 주신다. 이는 걱정 말라고 하시며 그것을 늘 보면서 믿고 행하라 하심이다.

6.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사랑한다는 약속으로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증표인줄 모르고 하나의 그때 해당되는 선물로 아는 자들이 많고도 많다.

7. 말씀도 하나의 생명의 증표다. 주가 섭리사의 모두를 신부로 사랑한다고 주는 증표다. "때가 됐으니, 말씀이 오는구나."라고 생각 말아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보는 입장에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근본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8. 어제와 무지개가 월명동과 인대산 쪽에서 크게 보이고, 이곳저곳 각 지방에서 보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

9. 저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표로 주신 것들을 찾아보아라. 잊고 버린 자들도 많고,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잃은 자도 있다. 귀하게 여겼어도 누가 훔쳐가서 없는 자도 있다. 증표를 잘 관리해야 된다.

10. 약속받고 증표도 받아라. 그래야 늘 증표를 보면서 그에 해당되는 말을 하게 된다.

11. 무슨 약속으로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증표도 권세가 있고, 빛이 나서 증거도 하게 된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혹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증거물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알고 살아야 된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약속과 증거물을 받은 자는 그만큼 원하고, 그에 해당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사랑해서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물을 주신다.
4.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주신 것도 있지만, 이미 약속과 증거물을 받았어도 자신이 모르는 것도 있다.
5.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여라. 그로 인해 증거물도 주신다.
6. 받은 약속을 잊지 말고, 받은 증거물과 선물들도 생각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보물들을 잘 간직하여라.
7. 약속으로 받은 증거물과 상징물들을 보면서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여라.
8. 하나님은 휴거되는 사랑의 영원한 말씀을 주셨다. 이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로 인해 세상 사랑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더 사랑해야 된다.
9.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빛나게 관리해야 된다. 자연성전과 각종 작품들은 하나님이 섭리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증거물이자, 주의 몸 상징이다.
10. 약속 말씀도, 그 증거물도 마음에서나 실제에서 잃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과 주와 약속하셨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달리 행하신다.
11. 성령과 약속하여 매일 잠언도 써 준다.
12. 성령님은 잠언을 쓰면, 쓸 때마다 꼭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증거물로 막히지 않는 지혜의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받게 해 주셨다.
13. 새벽에도 잠언을 쓰기 전에 사랑의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도 성령께도 이야기했다. ‘약속으로 주신 것들은 증거물과 선물이기도 하고, 보화이기도 한데, 정말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 “나는 보통으로 보이는데 무슨 뜻으로 저것을 증표로 삼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자기의 행위대로, 조건대로, 뜻 있게, 사연 있게, 그 약속도 뜻도 잊지 않도록 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한다.”라고 하셨다.
14. 하나님은 “솔같이 청정하고 변함이 없으면, 그 증거물을 솔로 정한다. 좋은 돌같이 단단하면 돌로 정하고, 또 받는 자가 좋아하는 대로 정한다.”라고 하셨다.
15. 그에 해당되는 조건을 세우면, 그에 대한 인봉을 떼다. 지역의 뜻과 인봉을 떼는 것도 그러하다.
16. 이 모든 말씀을 깨달으려 하는 자들은 깊이 깨달을지어다.
17. 하나님은 행위대로 골고루 약속하시고, 그 증거물도 골고루 각종으로 주신다.
18. 지체가 머리와 한 몸들이라면, 주가 받은 주의 것들이 모두 지체의 것으로 사용된다.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약속한 자에게 늘 ‘성령의 감동’을 주시어 자신의 약속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증거물’을 주어 보게 하여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두 겹줄로 증거물을 삼으신다. 축복의 말과 그에 해당되는 존재물이다.

2. 증거물을 쓰고 귀하게 여기며 관리해야, 그것이 축복이 된다.
3. 증거물은 늘 보고 사용하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다.
4. 약속한 '성령 길', 증거물을 귀하게 사용하니 빨리 다니게 되었다. 시간 축지도 하게 되고, 순간 이동하는 표적도 일어났다.
5. 어제 길을 아주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골프 차로 날 좋은 때, 밤에 달려가 보았더니, 4분이 걸렸다. 그 거리를 속지 때 40초에 갔으니, 6배나 빨리 갔던 것이다.
6.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면서 빨리 가게 약속하신 길이다. 멀어서 자주 갈 수가 없다고 했더니, 소로 길을 주셨다. 성령 주간에 기념으로 증거로 주셨다.
7. 증거로 주신 것들을 연구해보면 그 사연도 신기하고, 존재물들도 신비하고 오묘하기도 하고 귀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뜻이다. 성령의 역사와 행하심이 귀하다는 뜻이다.
8.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은 잊기도 하지만, '주신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늘 사용하고 보기 때문이다. 증거물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과 사연이 생각난다.
9. 주신 것을 귀하게 보고, 왜 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존재물을 연구해라. 무지개같이 큰 뜻이 있다. 무지개의 한쪽은 하나님도 보좌 뒤에 두르게 하여 가지고 계시고, 땅에도 한쪽을 주어서 보게 하셨다. 7가지 색의 무지개가 아름답다. 아치형은 최고의 형(形)이다. <성령 길>도 S라인이 7번이나 된다. 주신 의미도 7가지의 화려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은밀한 뜻도 가지고 있고, 사랑해서 줬으니 '사랑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연구하면 알수록 신기하다. 모두 이같이 자기에게 준 것을 연구하고, 깨닫고,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영광 돌려라.

<2020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자기 공력대로 화도, 심판도, 복도 받는다.
2. 누구든지 행해 놓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있는지 보아라. 지은 집이 무너졌는지 물이 새는지 보고, 혹은 쌓은 돌이 무너졌는지 튼튼한지 보면, 자기가 그 일을 얼마나 공력을 들여서 했는지 알게 된다. 신앙생활도, 사랑도, 전도하는 일도, 관리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그러하다. 자신이 신앙 안에서 행한 일들이 무너졌는지, 그대로 잘 되었는지 보아라. 제대로 안 되었으면 온전하게 100% 행하지 못한 것이고, 공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화를 받게 되고, 잘한 자는 복을 받게 된다.
3. 어떤 일을 해 놓을 때는 시간과 세월이 가면 계절을 따라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눈보라가 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분다는 것을 알고 정말 온전하게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하려면, 너무 힘이 들고 공력이 든다. 신앙의 삶도 그러하고, 모든 인생의 삶도 그러하다.
4. 해 놓고, 계속 온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작은 것이 무너질 때 쉽게 고치고 방지할 수 있다.
5. 관리는 무너짐과 실패를 막고 해결하는 최고의 일이다.
6. 기도로 관리하고, 각종 정성과 힘과 공력을 들여서 관리다. 자기 관리, 생명 관리다. 지속적인 관리다. 해 놓고 관리하면서 쓰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섭리사의 생명들을 말씀으로, 잠언으로 관리한다. 지금 비가 쏟아지니, 이 말씀을 써서 보내 놓고 산책길을 보러 간다. 비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석분과 모래와 자갈을 깔아 놓고 도랑을 파 만들어 놓은 곳이 터졌나 보러 간다.
7. 생명도 존재물도 매일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섭리인들과 귀하게 쓰면서 천 년 혼인잔치 하기다. 홀로

하면 재미없고, 황금천국도 못 간다.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살면서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약속된 일을 이루며 행한 대로 저마다 천국에 자기의 영원한 집들이 지어져 가고, 육계에서도 지어져 간다. 금이나 보석의 신앙의 집을 짓고, 육신의 집과 환경도 만들어 가면서 삼위와 주를 모시고 매일 사는 삶이다.

9. 하나님의 심판 후에야 자기 공력을 알게 된다.

10. 비바람, 눈보라, 태풍, 지진, 환난 핍박 후에야 자기 공력을 알게 된다.

11.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 행위대로 받도록 아예 공의의 법칙을 정해 놓으셨다. 이를 깨닫고 저마다 열심히 특기와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공력을 쏟아 행해라.

<2020년 9월 9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공력의 야심작은 무너지지 않는다.

2. 공력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는다.

3. 공력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다.

4. 완벽한 공력이다.

5. 얼마나 공력을 들어서 했는지 하나님은 홍수로 태풍으로 환난풍파로 지진으로 행하여 보신다.

6. 운전도 걸음도 각종 행함도 100% 공력을 들어서 행하면, 100% 완전하다.

7. 완전하게 행하면 완전하다.

8. 천 년 역사를 가야 하니, 신앙도 사랑도 진리도 믿음도 육에 속한 것이나 영에 속한 만사의 것들도 아예 천 년이 가도록 공력을 들어서 행하여라.

9.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같이 행하려면 행할 수 있다. 삼위와 주와 일체 되어 맘과 뜻과 목숨 다해 행하면 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10. 자기를 위해 집을 지어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만물도 공력대로 갚아준다.

11. 공력대로 기쁨도 복도 받고, 사랑도 받고, 화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

12. 자기 육적인 집이나 영적인 집이나 공력을 들어서 돌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자료로 잘 지어라. 그래야 무너지거나 썩지 않고, 자연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그로 인하여 귀하게 쓰고, 기쁨도 보람도 있고 복도 받는다.

13. 청기와 작은 집은 하나님이 터를 주시고, 성자가 해 주신 집인데 정말 공력을 들어서 만들었다. 산 쪽은 홍수가 나서 무너질까 봐 50cm 시멘트벽을 치고, 벽 뒤에 큰 돌을 넣고, 배수로를 내서 산 쪽 물이 흘러가게 했다. 집 바닥에서 습기가 차지 않도록 집 좌우에 2m를 깊이 파서 자갈로 채우고, 또 한옥에 습기가 안 차게 부엌도 화장실도 안 만들고, 별지로 만들었다. 방바닥도 절대 습기가 안 차게 1m 이상 파서 두꺼운 비닐을 깔고 큰 돌을 넣고, 그 위에 작은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흙을 깔았다. 그래서 집이 습하지 않고 건조하다. 습기를 완전히 차단했다. 전문가가 나뭇집으로 건축했는데, 구상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해 주셨다. 각도와 크기와 모든 것을 구상해 주셨다. 지붕의 기와는 최고 좋은 청와대 청기와로 덮었다. 성자는 작품으로 지어야 10배도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왕 공력을

들여서 짓되, 작품으로 지으라고 하셔서 그리 건축했다. 27평이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상하셔서 추녀 밑을 다 사용하게 지어서 넓다. 뜨락은 돈이 들어서 못했는데, 어느 날 성자가 기성의 대리석 공장의 장로를 보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닥은 20cm 두께로 깔고, 옆에 쌓는 데는 30cm 두께로 튼튼하게 했다. 내가 없을 때 관리가 안 되어 습기가 차서 기둥의 색이 바래서 내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뜯고 다시 크게 짓는다고 보고가 왔다. 그래서 뜯고 다시 지으라고 허락해 놓았는데 며칠 후에 성자께서 나를 불러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물로 지어주고 온 집이 그것 하나인데 뜯고 다시 지으면 세상에 내가 지어준 집이 없지 않느냐. 뜯지 말아라.” 하시면서 깨끗이 수리하여 기념으로 쓰라고 하시어 다시 수리를 깨끗이 하여 살고 있다. 이같이 공력을 들여서 지은 집이라 작아도 튼튼하다. 작아도 하나님이 집터를 주시고, 성자가 지어 주셔서 가치가 엄청나다. 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이 집에서 말씀을 쓰고 전하기도 한다. 집이요, 성전이 되기도 한다.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라고 준 일과 사명들을 행할 때 귀한 공적이 된다.
2. 자기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을 성령과 주의 뜻대로 할 때 자기에겐 큰 공적이 된다.
3. 공적은 개인 공적과 섭리 공적이 있고, 민족을 위한 공적도 있다. 또한 세계를 위한 공적도 있다. 공적을 세운 대로 받게 된다.
4. 놀지 말고, 공적을 쌓고 세워라.
5. 자기 건강을 위해 뛰고 달리고 관리하는 공적을 매일 쌓고 세워서 건강하게 살아라.
6. 하루 만에 많은 공적을 세울 수 없다. 1년, 2년,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모으듯 해야 많이 쌓고 모으게 된다.
7. 큰 공적은 적은 시간에 못 쌓는다. 월명동 자연성전의 돌을 꾸준히 오래 해서 크게 쌓고 환경을 만들듯 공적도 그러하다.
8. 주와 함께 하는 공적이 빛이 나고, 크고, 귀하다.
9. 주가 매일 말씀을 받아주는 공적을 쌓듯이, 너희도 매일 말씀을 귀하게 읽고 행하는 공적을 쌓고 세워라. 1년씩 가면 그 공적도 크다.
10. 공적 중에 창조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공적이 그리도 크다. 영원한 공적이 된다.
11. 휴거의 공적이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이룬 공적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살면 삼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랑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 이 같은 축복에 진리와, 믿음과, 절대 주와 일체 된 사랑과, 삼위와 사랑의 삶이다.
12. 말의 공적도 그리도 크다. 복음도 아닌데 주가 말한 대로 듣기가 바쁘게 말하고 다니면 주는 7분의 1로 말을 줄여 버린다. 주의 계시를 못 받으면 방자하게 된다.
13. 자기 주관과 인식대로 말하지 말고, 자기가 좋게 행하는 것도 좋아서 하기 바쁘게 금방 말하는 버릇도 고쳐라.
14. 여자들은 - 그렇지 않은 자는 빼놓고 - 주께나 누구에게 말을 들으면, 이야기 듣기 바쁘게 입이 가벼워서 끼리끼리 말하고 속닥거린다.
15. 입이 가벼운 자는 듣기 바쁘게 복음도 아닌데 전하고 다닌다. 그런 자들은 조심해라. 성령님은 그 앞에 귀한 말은 입을 열지 말라고 하셨다.

16. 말의 공적을 쌓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을 받고 그에 해당되는 축복도 받는다.
17. 악평자도, 불평자와 험담하는 자도 말을 듣기 바쁘게 자기 주관과 인식을 넣어서 끼리끼리 전하고 말한다.
18. 서로 통하는 자들끼리는 들은 대로 말한다. 주께는 안 했다고 하고도 말한다. 주의 입이 닫히면, 하나님과 성령님의 입도 닫히게 되어 그때는 사탄이 임하여 대화하게 된다. 말할 때마다 스스로도 조심할지니,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들은 말이라도 자기만 알고 딴 자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19.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공적대로 주시니, 누가 무엇을 받으면 ‘나는 모르지만 공적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라. 자기도 공적을 세우면 받게 되는 것이다.
20. 사탄은 공적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을 축복하느냐고 하며 욕을 괴롭게 했다. 사탄의 마음을 버려라.
21. 사람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의미도 모르고 말만 듣고 자기 인식대로 동료들에게 말을 듣기 바쁘게 전한다. 성경에 자기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절대 혀를 금하여라. 절제하라.” 했다.
22. 큰일을 하는 자는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
23. 뉴스를 바라. 말한 대로 꼬투리를 잡고, 조건을 잡고, 고소하고 형벌을 주지 않느냐.
24. 사람들은 너만 알라고 해도 결국 후에 말하고 만다. 그리 알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만 말하여라.
25. 악평자는 모두 말로 거짓되게 꾀어 잡아간다.
26. 섭리사도 말로 인하여 상처 받고, 실망도 시킨다. 주도 서로 믿고 말하기가 무섭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이제 일언중천금(一言重千金)이 되어라.” 말씀하셨다.
27. 어린아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해야 되고, 복음도 그 사람에게 해당되게 전해야 된다. 모두 그러하다. 주의 말씀은 천금 같다. 말씀이 축복이다.
28. 좋다고 말하고, 기분 나빠서 화난다고 말하게 되니, 모두 조심하여라. 왕은 자기가 침실에서 혼자 말해도 다 듣는다고 했다. 이는 백성 중에 자기 사랑하는 자가 다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늘도 가르쳐 주어 그가 누구에게 말하면, 말해 주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12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큰 공적은 혼자 못 세운다. 서로 뭉쳐서 함께 행해야 된다.
2. 누구에게 공적을 세웠느냐에 따라 그에게 받게 된다.
3. 놀지도 말고 부지런히, 더 늦게 전에 제때마다 자기 공적을 세우기다.
4. 마음도 몸도 부지런히 해야 자기에게 해당되는 공적을 세운다.
5. 공적 없이는 땅으로나 하늘로나 대가를 얻지 못한다.
6. 자기가 행하여 얻은 축복들이 공적이다.

7. 공적 세움을 잊지 말아라. 범사에 행하여진다.
8.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에 대한 공적을 세워라.
9. 사랑을 얻으려면, 사랑의 공적을 세워야 된다. 행하는 종류대로 공적의 대가를 받게 된다.
10. 영원한 공적을 세워야 영원한 것을 받는다.
11.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공적을 세워라.
12. 생명관리 공적, 그 신앙을 키우는 공적,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하도록 하는 공적을 행해라.
13. 공적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14.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황금천국에 가서도 공적대로 표가 난다.
15. 의를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아주어라. 그 의로운 공적으로 그도 축복받고, 자기도 축복받는다.
1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그 공적으로 육도 영도 가치 있게 빛이 나고, 사랑도 받는다.
17. 주의 공적은 영영하고, 영원히 빛이 난다.

<2020년 9월 13일 주일 잠언>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오셔서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너무도 귀하고 많은 일들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을 맡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혼자 말씀을 전해 주고, 혼자 밥도 해 먹고, 혼자 빨래도 하고, 모두 혼자 했다. 그러다가 전도되어 사람이 많아지니,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신 생명들 중에 열두 제자를 세워 놓고, 혼자 전할 수 없는 복음을 같이 전하게 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뽑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말해 주면서 각 마을 촌락에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듯 전해 주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데려온 자들을 전적으로 가르쳐 주고, 메시아로서 머리가 되어서 해 줄 것들을 해 주고, 관리해 주고, 생명들을 다스렸다.

2.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모여든 자들은 모두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고, 선을 이뤄야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체가 같이 서로 일을 나눠서 머리를 중심해서 해라.” 했다. 또 <로마서 12장 4~8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손과 발, 입과 귀, 눈과 코 등 모든 각 지체가 있어서 절대 머리를 중심해서 지체별로 나눠서 하듯이 하나님과 주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행해 왔다. 또 “모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일을 하며 주를 섬겨라.” 했다. 이 두 곳을 중심해서 성경 전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사명자 혼자 하다가, 점점 커지면 홀로 할 수 없으니 개성대로, 사명대로, 소질대로 일을 맡겨서 하게 했다.

3. 일을 하되 혼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둘이 할 일이 있고, 셋이 할 일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야 제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다.

4. 선생도 일을 해 보니, 처음에는 모두 혼자 했다. 사람이 없으니 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혼자 밥도 해 먹고, 혼자 빨래도 하고, 혼자 시장도 가고, 혼자 말씀도 준비해서 전해 주고, 혼자 집 청소도 하고, 혼자 생각도 했다. 그러다가 점점 사람이 와서 홀로 할 수 없으니, 그때마다 이 사람도 시켜서 하고, 저 사람도 시켜서 하고, 강의도 가르쳐 주면서 “배운 대로 너희도 가르쳐 주어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자가 많게 됐다. 그중에 먼저 온 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관리도 하게 하고, 부서 지도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행하게 했다. 그리고 선생은 더욱 머리가 되어

서 지도자들을 관리해 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일을 맡겼어도 내가 하는 대로 못 하니깐 자꾸 못 맡기고 내가 하게 됐는데, 그러니 일이 많아서 다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르쳐서 그들이 하게 했다.

5. <민수기 1장 1~16절>까지를 보아도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하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오게 되니 각 족속 별로 족장을 뽑아서 그들이 자기 족속을 인도하며 가르쳐 주기도 하고, 관리도 하게 했다. 그러면서 일을 쉽게 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일들을 두고도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홀로 하다가 따르는 자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하게 했다. 각자의 소질대로, 능력대로 맡기고 그들로 행하게 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항상 머리가 되어서 그들이 한 일을 잘 했는지 보고, 또 교정도 하고, 다시 하게 하기도 했다.

6.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려면, 일을 개성대로 잘 맡겨서 힘대로 능력대로 하게 해 줘야 된다. 캠퍼스는 캠퍼스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청년부는 청년부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가정국은 가정국 지도자를 세워서 하고, 장년부는 장년부 지도자를 세워서 모두 그 차원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해야 된다.

7. 혼자서는 큰일을 할 수가 없다. 이는 아무리 좋은 큰 돌을 주웠어도 홀로는 큰 돌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것과 같다. 지도자라도 못 가져오고, 머리가 좋아도 못 가져온다. 힘이 센 장수라도 혼자서는 힘들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 되어 힘을 모아서 가지고 와야 가지고 올 수 있다. 섭리사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못 한다고 안 맡기면, 항상 지도자 본인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각종 소질과 재질이 없으니 능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할 수 없고, 또 제때 할 수 없다.

8. 하나님의 큰일을 두고 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해도 됐지만,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 모두에게 재능대로 일을 맡기고, 잘 가르쳐 주어서 각 지체가 하듯이 하게 해야 된다. - 이렇게 하는 교회여야 잘 되고, 부흥되고, 대(大)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

9. 모두 가르쳐 주고, 자꾸 일을 시켜보면 잘한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나만큼 못 한다. 약하다. 모른다.”라고 하면서 안 맡기면, 그 차원의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니, 결국 못 하게 된다. 지도자는 머리가 되어서 하고, 나머지는 지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 몰라도, 어려워도, 힘이 약해도, 나름대로 일을 맡겨서 일을 계속하면서 배우고, 경험도 쌓게 해야 된다.

10. 성경의 역사도 그렇게 해 왔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 오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 왔고, 현재 선생도 그렇게 맡기면서 역사를 해 왔다. 섭리사는 지금 지도자만 해도 수천 명씩이나 된다. 교역자만 지도자가 아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캠퍼스, 청년부, 가정국, 장년부까지 모두 지도자가 있다. 그들이 그 차원의 사명을 맡아서 해야 잘 한다.

11. 머리는 머리의 일을 해야 되고, 지체는 지체의 일을 해야 가장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12. 머리는 전체를 묶어주는 일을 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일을 개성대로 맡기고, 감독도 해 주고, 전체의 균형도 잡아 주고, 하나님께 받은 구상을 이해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교역자들은 일꾼이 없다고 일을 혼자 다 쥐고 한다. 간사와 각 부서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다. 금주 말씀을 듣고 이것을 꼭 고치고 행해야 된다. 어떤 지도자는 남이 하는 꼴을 못 보고, 자기만 한다. 그러니 교회 발전이 안 된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불어나지 않는다.

13. 자기만 하면, 자기만큼밖에 못 한다.

14. 선생이 아무리 설교를 잘 해도,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설교해 주지 못한다. 묶어서 전체는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나머지 교회 운영과 각종 일들을 맡겼으니, 서로 지도자들을 뽑아서 의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된다. 교회를 사는 것도 혼자서는 못 산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도 그러하다.

15. 어느 때는 선생이 “이 돌은 무거워서 못 든다.”하고 혼자 들어보다가 간다. 그러면 옆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같이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한다. 5~6명이 모여서 하니, 가볍게 옮겨 놓았다.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일을 믿고 맡겨서 자꾸 일꾼들을 만들어야 된다.

16. 할 줄 몰라도 ‘힘’은 다 있다. ‘힘’을 모아만 쥐도 쉽다.

17. 공력(功力)도 ‘힘’이 있어야 다 할 수 있다. 홀로 하면, 힘이 모자라서 못 한다.

18. 교회에 각종의 많은 사람이 있다. 각종 분야대로, 재능대로 써야 된다. 행하는 것은 행하는 기술자가 와서 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한 대로 쓰고, 게으른 자는 게으른 대로 쓰면 된다.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히 하는 데 써야 된다. 잘 먹는 자는 잘 먹는 데 데려다가 음식이 썩지 않게 해야 된다.

19. 사람들은 개성의 특기가 많고, 탁월하다. 이들에게 골고루 일을 맡겨서 써야 된다. 그들에게 일을 안 맡기면 안 한다. 힘도 있고, 소질도 있는데 안 맡기면,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쓰고 재능들을 써 버린다.

20. 자기 힘과 재능과 소질을 하나님 안에서 우선권으로 쓰도록 믿고 일을 맡겨 주고, 열심히 하도록 지도해 주고, 자기 생활을 위해서 하도록 소질과 재질을 길러 줘야 된다. - 이것이 금주 말씀이자, 하나님이 어명하신 말씀이다.

21. 하나님은 절대 한 명에게 일을 다 맡기지 않으신다. 혼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긴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독점하는 자들이다.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듯 맡겨야 된다. 소질과 재질대로 맡겨야 된다.

22.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홀로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었다. 월명동 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포클레인, 크레인, 리어카에 맡겨서 해 왔다. 각자 돌을 쌓고, 흙을 채우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으라고 했다. 개성대로 다 합동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자연성전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날짐승도 동원하셨다.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까마귀를 보내서 조심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써야 된다. 기술적으로 다 써야 된다. 그래야 큰 역사를 이룬다.

23. 한국의 큰 교회일수록 지도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서 쓰고 있다. 주님의 흰돌교회도 그러하고, 광명교회와 지방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혼자서 못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어 하게 하니 부흥되는 것이다. 작은 일은 홀로 할 수 있지만, 큰일은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잠언>

24. 먼저는 성령의 말씀과 감동으로 개인이 할 일은 개인이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협력하여 함께해야만 된다.

25. 아무리 사명자라도 6명이 옮길 보물 같은 돌을 혼자 못 옮긴다. 2명도 3명도 못 옮긴다. 꼭 그 돌을 들만큼의 인원이 되어야 합심해서 옮겨올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두고도 먼저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과 감동을 받고 머리가 되는 주와 그에 해당되는 인원만큼 협력하여 일을 해야 된다.

26. 사명자라도, 힘 있는 장수라도, 지혜자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할 일을 혼자 하면, 못 한다.

27. 흔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 맘에 들게 못 한다고 혼자 하거나, 마음에 드는 자들끼리 한다. 그러면 그만큼 밖에 못한다. 큰일은 혼자 할 수 없다. 협력하여 같이 해야만 된다.

28.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해야 되고, 그에 해당되는 자들이 모두 협력해서 해야 모두가 원하는 만큼 하게 된다.

29. 할 자가 없으면 가르쳐서 해야 되고, 행하며 그때마다 가르치면서 해야 된다. 못 한다고 책망하고, 실망하고, 싫어하면서 혼자만 하면 혼자 한 만큼만 된다. 큰일을 혼자 하면, 큰 돌을 혼자 옮기는 것 같아서 안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일도 그러하다.

30. 전도도 혼자 할 몇 명의 생명들은 혼자 해도 되지만, 많은 자들을 하려면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많은 자를 전도하

려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해야 된다.

31. 교회의 일들도 교역자 혼자 하면 안 된다. 부서별로 모두 사명을 주어 지도자를 세워서 가르쳐 주며 같이 해야 된다. 각 부서들도 책임자 혼자 하지 말고, 모두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하여라. 만일 사명을 줬어도 귀하게 여기지 않든지, 열심히 안 하면 다른 자에게 사명을 주어 하게 해야 된다.

32. 못 하면, 돕고 가르쳐서 같이 해야 된다.

33. 혼자 하기보다, 가르쳐서 같이 하면 불가능한 것도 하게 된다. 개들도 훈련을 시켜 놓고 산속에서 잃은 사람을 같이 찾으려면, 쉽게 찾게 되지 않느냐. 사람을 짐승보다 훨씬 낮게 창조해 놓으셨으니, 가르쳐서 사명을 나누고, 같이 협력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해야 된다.

34. 전쟁도 혼자서 못 한다. 적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개발도 혼자서 못 한다. 너무 많아서 혼자 연구하다가 100년도 넘게 해야 되니, 쓰지도 못하고 죽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하면, 뜻을 빨리 못 이루고 죽는다. 모두 협력하여 같이 하면서 기쁨도 같이 누려야 되고, 축복도 같이 받아야 된다.

35. 많은 자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빨리하게 되고, 때가 지나가기 전에 제때 하게 된다.

36. 중국의 만리장성도 혼자서는 못 쌓았다. 몇 명 마음에 드는 자끼리도 못했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모두 같이 해서 쌓았다.

37. 성지 땅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개발하는 것도 사명자 혼자서는 못했다. 생각이 마음에 드는 몇 명으로도 못 했다. 일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두 협력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함께 중장비를 이용해서 했다.

38.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신앙 안의 일들 중에 함께 할 일은 모두 함께 협력하여 하기를 원하신다.

39. 지도자들은 일을 혼자 쥐고 하려고 한다. 모두 나눠서 하여라.

40. 코로나도 지도자들만 해서는 못 막는다.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책임 분담하여 행해야 없애버린다. 이와 같이 섭리역사의 일도, 교회의 일도 모든 사람들이 개성대로 참여하여 행해야 된다. 금주 말씀을 듣고, 더욱 그러해야 된다.

41. 하나님의 역사도 6000년 동안 삼위와 주와 믿고 따른 자들과 함께해 왔기에 뜻을 이뤘다.

42. 온 교인이 함께 협력하여 하지 않는 교회는 큰 발전이 없다.

43. 잘 된 교회들은 교역자와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모두 협력하여 함께 일한 교회들이다.

44. 개인 차원의 것은 주와 함께 개인이 혼자 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일들은 수많은 자들이 함께해야만 할 수 있다.

45. 혼자 하는 것은 마치 한 발로, 한 손으로 일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못 하게 된다. 함께해야 양손, 양발로 일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다.

46.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민족이든지 세계든지 서로 협력하고 합동해서 해야 잘 되고, 불가능한 일도 하게 되어 형통하고 성공하게 된다.

47. 모두 합동하여 하나 되어야, 평화롭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먹는 것만 나누어 먹고 즐기지 말고, 사명도 나누어서 같이 일하면서 즐기고 기뻐하며 살아라.
2. 자기가 하던 일의 때가 되어 더 큰 다른 사명을 하려면, 자기 사명을 다른 자에게 가르쳐 주어 그로 하게 해야 된다.
3. 일도 사명도 여럿이 해야 그 일과 사명으로 지치지 않고, 이상적으로 하게 된다.
4. 100명이 있으면 모두 사명을 주어 같이 하게 해야 100가지를 다양하게 하게 되고, 그들도 주인의식이 생겨서 자기 것으로 여기며 관리도 계속하게 된다.
5. 섭리사에는 종들도 아들들도 없다. 모두 신부들이니 가정을 꾸려서 사는 자와 같이 자기 할 일들이 있다. 혹여 교회에서 사명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하면서 그때그때 할 일들이 보이니, 그 일을 하여라.
6. 선생은 예전에 교회에서 사명을 주지 않았어도 내 할 일을 했다.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를 온전히 만드는 일을 밤낮으로 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때가 되어 개인적으로, 가정 단위로, 민족 단위로, 세계 단위로 하나님이 시대에 목적하신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고, 따르는 자들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재림 휴가와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셨다.
7. 교회에서 집사도 안 되고, 반사도 교사도 안 됐어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 할 일이 많았다. 그 할 일들은 교회에서 사명을 안 줬어도 너무도 많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사명을 줘서 하느냐. 전도가 누가 사명을 줘서 할 일이나. 자기가 꼭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 된다. 천국을 위해 공력과 공적을 세우고, 저마다 영적 육적 집도 짓고 잘 살아야 된다.
8. 할 일 중에 꼭 할 일이 사랑의 세계의 일이다. 생명을 구원하여 많은 생명들을 낳는 일이다. 생명들을 기르고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하나님의 시대 천 년 혼인잔치를 하며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일이다.
9. 짐을 많이 지고 빨리 편하게 가는 자는 없다. 사명의 짐도 그러하다.
10. 누가 일을 잘하는지 알 수 없다. 가르치고, 함께 오랫동안 일을 해 보아라.
11. 일의 감독이 되어 모든 자들을 골고루 지켜보며 다스려라.
12. 잠언을 받고 전달하는 데도 6명이 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타자 치고 교정하는 자, 최종 교정자다. 혼자 하면 매일 빨리할 수 없다. 지금도 성령님이 주어서 기록한다.
13.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할 때 성령이 감동시킨 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라도 데리고 하니, 성령이 인도하여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
14. 달리기 선수를 뽑을 때도 100m를 뛰게 해서 1등, 2등, 3등 하는 자를 뽑아서 선수로 쓴다. 사명자도 모두 다 시켜 봐서 잘 하는 자를 뽑아서 해야 된다. 자기가 아는 자만 뽑아서 쓰니, 비전도 없고 발전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다.
15.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은데 안 해 보고 늙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지도자는 하고 싶어하는 자를 가르치고 만들어서 그들로 하게 해라.
16. 일자리를 창출해서 노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해라.

17. 섭리사에 신앙의 실업자가 없어야 된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명은 하다가 안 하면 감각이 무뎌져서 다시 하더라도 못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항상 작은 사명이라도 스스로 만들어 해야 된다.
2.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령님을 위해, 주를 위해 자기 사명을 찾아 해야 된다.
3. 일과 사명은 찾으면 너무도 많다.
4. 사명과 각종 일들은 찾을수록, 할수록 많다.
5. 세상의 일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많고도 많다.
6. 일을 하든지 사명을 하든지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극히 다치지 않도록 하고, 서로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 행할 일이다.
7.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나를 위해서 해 보아도 일의 지혜가 필요하고, 할 일을 하나님께 구해서 찾아야 된다.
8. 하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야 사명도, 일할 것도 하게 된다.
9. 더 좋은 일을 더 이상적으로 해야 더 얻게 된다. 반복되는 차원으로 똑같이 하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하는 것 같아서 새로움도 없고 얻는 것도 동일하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차원 높여 색다르게, 더 좋게 해야 된다.
10. 할 일도 자기 사명도 찾고 보면 많고도 많은데, 할 일이 없다고 사명이 없다고 논다.
11. 비가 와서 원래 하려고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도랑 가에 나가서 희귀종 작품 돌을 주웠다.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다. 즐겁게, 기쁘게 하게 되었다.
12. 신앙의 사명의 일도 모두 같이 해야 재미있게 서로 도우며 기쁘게 하게 된다.
13. 먼저 정해놓고 사명을 위해 기도하여라.
14. 그 사명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다. 사명의 지혜와 지식이다.
15. 일과 사명을 한 만큼 하나님께도 주께도 받는다. 영원히 남는 일을 하여라.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돌 보화도 귀하게 여길수록 귀한 돌을 얻게 된다. 모든 것도 그러하다. 사명도 귀하게 여길수록 각종으로 더 주시고, 가치를 깨닫게 되고, 충성으로 할수록 보람이 있다.
2. 값비싼 귀한 수석도 알지 못하면 보아도 줍지 못하듯, 사명도 귀하게 알지 못하면 각종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
3.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 안에서 주신 사명이 귀하고 좋다. 정말 가치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에 드는 전문가, 기술자가 되어 충성으로 행하여라.

4. 일을 해 보면, 할수록 더 좋게 하게 된다. 어제 했어도 오늘 보면 더 이상적으로 낮게 할 수 있는 구상이 떠오른다. 이는 행한 차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5. 사명에 빠져서 사명과 일만 하지 말고, 일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서로 화동하며 하여라.
6. 일이 끝나면 그 일로 인한 보람도 낙도 있지만, 일하면서 누리는 기쁨의 낙도 그리 큰 것을 깨닫고 알고 하는 자는 안다.
7. 하루를 두고 보아도 할 일을 늦게 하면 써먹을 시간이 아주 적다.
8. 할 일을 빨리하고 끝내서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며 많이 써먹어라.
9. 같이 돕고 해야 훨씬 이상적인 것을 얻는다.
10. 하나님이 주셨어도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같이 해야 웅장하고, 아름답고, 보람 있고, 귀한 것을 얻게 된다.
11.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섬기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명들'이다.
12. 자유롭게 밖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예서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야곱은 엄마 품에 매어서 살다 보니, 결국 축복의 대상이 되어 경제 축복, 사랑 축복의 주인이 되었다.
13. 옛날에 개를 길렀는데 늘 줄에 묶어서 길렀다. 왜? 농사철에 곡식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쥐약을 마구 놓아서 쥐약을 먹고 죽을 까봐서다. 매어 놓았다고 개가 나를 싫어하면서 너무 소리를 지르며 짖어 대는 것이 듣기가 싫어서 줄을 끊어 놓았더니, 쥐약을 먹고 죽었다. 이와 같이 답답해도 주의 은혜의 사슬에 매어 묶여 살아야 사망의 사슬에 매어 죽지 않는다.
14. 선생은 10대, 20대, 30대가 넘도록 고생되어도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은혜와 사랑의 사슬에 묶여 살았다. 자기가 좋은 대로, 자유대로 산 자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어도 구시대에서 사망에 묶여 산다.
15. 섭리사에서도 주가 묶는다면 제 좋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살겠다고 제 버릇을 못 고치고 산 자들은 자기 사슬이나 타인의 사슬이나 세상 사슬에 묶여 살고, 더 자유가 없는 몸으로 괴롭게 사는 운명들이 된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뛰고 달리며 이 새벽 잠언을 쓴다. 나는 고달프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다. 누구에게도 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 안에 매인 자유 된 몸이다. 사망에 매인 삶이 아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사랑과 은혜의 사슬에 매인 자들이다.
16. 성령과 주의 삶에 매여야 사랑 천국이다. 신부의 삶이다. 그릇된 버릇을 고쳐야 자기 공력과 공적대로 제대로 받고, 황금천국을 차지하고, 육도 잘 되고 가치 있게 기뻐하며 살게 된다.
17. 사탄은 늘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하도록 역사한다. 주의 생각만이 온전하다. 성경에 자기 생각과 육의 생각은 사망의 생각이라고 말씀했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대로 하고, 사명을 하여라.
18.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를 속이는 자가 누구냐. 그러한 자가 신부들이냐. 자기가 행한 대로 사탄이 치고, 자기가 행한 대로 주도 대해 준다. 회개만이 바로 생명길로 가게 하고, 육도 영도 살게 한다.
19. 왕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는 왕의 법으로 대한다. 곤고하게 되고, 괴롭게 되고, 안타깝게 된다. 처음 신앙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먹다가 입에서 토하게 된다. 잘해 줄 때가 자기 기회다. 때가 지나면 운이 돌아가 버린다. 예정된 것도 돌아가 버린다. 고로 성령과 주 안에서 늘 근신으로 행해야 된다. 남 탓 하지 말고, 자기 생각과 마음이 그릇된 탓을 하고 고치고 살아라. 믿어 주고, 좋아해 주는 대함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라. 그것이

네게 축복이다.

20. 모두에게 사명을 주마. 성령 안에서 많은 자들에게 주 증거를 하며 시대 말씀을 전해 주어 생명들을 전도하여라.

<2020년 9월 20일 주일 잠언>

1.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했다.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흰구름은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한 것이다. 또 그 머리의 금 면류관은 ‘메시아가 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말한 것이고, 그 손에 가진 낫은 ‘말씀’을 말한 것이다.

2. 요한계시록 14장 15~16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두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러 익은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어 그 시대에 택한 자들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키우고, 구원시켜서 영은 하늘 천국으로 거둬들이고, 육은 신약 생명의 세계에서 살게 해 줬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때가 되면 계속 말씀을 주어서 2000년 동안 시대의 따르는 사람들과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거둬들였다.

3.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익은 곡식을 거둬들였듯이, 이 시대 보낸 자도 때가 되어서 42년 동안 생명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거둬들였다. 영은 황금천국으로, 육은 천 년 성약역사로 거둬들여서 살게 했다.

4. 익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 낫이 필요하듯이, 생명을 거둬들일 때는 그 시대 하나님이 사명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다.

5. 금주 말씀은 가을이 되면 수고하고 농사지은 것을 거둬들이듯이, 1년 동안 생명 농사지은 자들을 거둬들이고, 각자 자기 생명들을 거둬들일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도 시대 말씀의 낫을 휘둘러서 거둬들이고 있다. 생명뿐 아니라 ‘일 년 동안 수고한 것들’과 ‘자기 것들’을 거둬들이는 때다.

6. 생명들도 때가 되면 정말 거둬들여야 된다. 모두 함께 거둬들이면 할 수 있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농사지은 수박을 거둬들이듯이 말씀을 주고 이야기하여 성령과 주와 함께 거둬들여야 된다.

7.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니, 저마다 거둬들여라. 부지런히 열심히 하여 각종 물질이나 작품으로 대가를 주니, 지혜와 지식으로 기도하며 거둬들여야 할 때다.

8. 전에는 때가 안 돼서 거둬들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때가 된 것은 수박밭에 익은 수박같이 거둬들일 때가 됐다. 때가 됐는데 거둬들이지 않으면, 산 짐승이나 새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따가고, 썩어 없어진다. 생명들은 사탄들이 악평자나 악인을 쓰고 취해 간다. 먼저 하라고 말씀하니, 꼭 지켜 행해야 된다.

9. 하나님은 항상 먼저 행하도록 우선권을 주신다. 기회를 먼저 줘어도 이유를 대고 행하지 않으면, 후에 사탄과 야수들이 해한다. 그때 싸우면서 하면, 제대로 안 된다.

10. 거둬들일 때, 기회의 때 안 하면 눈보라 치는 때가 왔을 때 해야 된다.

11. 만사에 때가 있다. 올해는 선교의 해다.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못 했지만 다른 길로 할 일을 행해 왔다.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면서 할 일을 해 왔다. 특히 해마다 오는 추수의 때에 오는 환난들도 있으니, 어서 생명들을 집중하여 신경 써야 된다.

12. 게으르지 말고 뛰고 달려야 된다. 섭리사 9월 달력을 보면 골 차는 모습, 뛰고 달리는 모습이다. 그같이 뛰고 달려야 된다. 안 하면, 뺏기게 되고 응원하는 청중을 실망시키게 된다.

13. 성령과 주와 함께 의논하면서 뛰고 달려야 된다. 신앙의 가을이 됐으니, 이제 어서 ‘생명들’도 ‘할 일’도 추수하여라.

14. 하나님도 성령님도 계시하시기를, “생명 추수의 때다. 속히 거둬들여라. 행한 대로 축복을 주노니, 생명들도 일 년 동안 수고한 것들도 거둬들여라.” 하셨다. 관리자들은 생명들을 부지런히 관리하고,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해야 된다. 말을 잘 들으면 염소도 양이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양도 염소가 된다. 염소 같은 자들은 다시 손을 대서 말씀을 잘 해줘서 돌아오게 해야 된다.

15. 추수 때 부지런히 추수하고 서로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께 고했으니, 만나는 좋은 때도 온다. 추수 때는 추수해야 된다.

16. 주는 머리가 되어 지난주부터 추수했다. 거둬들이는 것은 정말 꼭 해야 될 일이다. 안 하면 전진할 수 없고, 자기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17. 추수 때는 먹고, 입는 것만 기본으로 하고 부지런히 추수해야 된다. 때가 지나면 못한다. 10년, 20년 동안 소원했던 것도 이때 얻게 되고, 이루어지니 어서 해야 된다.

18. 이때 부지런히 열심과 노력과 공력을 다하여라. 할 일이 많은 한순간의 때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과 주와 함께 열심히 추수해라.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의 낮을 휘둘러서 거둬들여라.
2. 말씀의 낮을 휘둘러서 거둬들여라.
3. 거둬들여야 거둬들일 것이 생각이 나서 거둬들이게 된다.
4. 자기 것은 자기만이 거둬들일 것이 무엇인지 안다.
5. 심은 대로 거둬들인다.
6.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곳은 잡초만 뒤덮여있다. 불 지르고 다음 해의 농사 준비를 해라.
7. 거둬들일 때 자세하게 완전하게 행하여라.
8.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뿌리고 가꾸었으니 감사를 잊지 말고 하늘 것도 자기 것도 분별하여, 하늘 것은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고, 자기 것은 자기 창고에 거둬들여라.
9. 심고 가꿀 때도 성령과 주와 하였으니, 거둘 때도 성령과 주와 해야 거둘 것이 생각이 나서 거두게 된다.
10. 어떤 것은 줄 것을 주는 것이 거둬들이는 방법이다.
11. 성령이 거둬들일 생명이 생각나게 하고 감동시켜 보내시니, 말씀의 낮을 휘둘러서 거둬들여라.
12. 확실한 말씀의 낮을 대라.
13. 낮으로 곡식을 베어 타작하고 확실하게 행해야 창고에 들이게 된다.

14. 완전히 창고에 넣어야 자기 것이 된다.

15. 기도와 감사와 기쁨으로 거뒀들여라.

16. 오늘도 또 거뒀들이자. 전화로 대화로 기쁨으로 희망을 주며 속히 거뒀들여라.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너무 쫓는다. 뛰지 마.” 하는 말보다 “너무 안 쫓는다. 더 뛰어라.” 하는 말씀이 항상 더 많으시다. 이를 깨닫고 더 뛰어야 된다.

2. 이 시대의 “거뒀들여라.”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깊은 계시의 뜻이 있다. 목숨 걸고 실천하며 즉시 행하는 자만 깨닫는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도 스스로 조심하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지구촌에서 3천만 명이 코로나로 병들어 지옥 고생하고, 그중에 약 1백만 명 가까이 죽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거뒀들이라고 할 때 어서 해야 된다. 안 하면 코로나를 조심하지 않은 자가 병들어 고생하고 죽듯이 해를 받게 된다. 어서 말씀대로 거뒀들여야 된다. 생명을 거뒀들이기다. 그러면 그 대가로 그에 해당되는 것들로 축복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해 주신다.

3. 생명들을 거뒀들여 보니, 익은 곡식이었다. 때가 되었으니, 무조건 거뒀들여야 된다.

4. 봄, 여름에 비바람과 태풍과 코로나로 어느 해보다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고생하며 수고했다. 고로 한 생명도, 어느 한 가지도 빠트리지 말고 거뒀들여야 된다.

5. 거뒀들이라고 했는데도 안 거뒀들이면, 곡식을 들쥐가 먹고 야수가 먹듯이 생명들도 사탄이 끌고 가고 악한 자가 끌고 간다.

6. 주 혼자서는 다 못한다. 섭리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해야 된다.

7. 어제 4명에게 말씀을 주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신앙의 불이 다시 붙었다.

8.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저마다 책임을 졌으니, 꼭 거뒀들여라. 그래야 코로나가 어서 끝나고 서로 만나게 된다.” 하셨다.

<2020년 9월 27일 주일 잠언>

1. 야보고서 3장 17~18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했다. 위로부터 난 지혜란 ‘하늘의 지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는 지혜’를 말한다. 그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했다. 성결하다는 말은 깨끗하고 성스럽다는 의미다. 지혜를 받은 자는 깨끗하여 육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깨끗하게 산다. 둘째, 그 지혜는 화평하고 관용한다고 했다. 화평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며 사는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혜를 받은 자다. 셋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양순하다고 했다. 양순하다는 말은 순하고 착하다는 말이다. 순하고 착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고 사는 자다. 넷째,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다. 긍휼이란 사람들을 너그러움으로 대하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이다. 사람이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2. 긍휼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긍휼히 여기고 대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대해 주신다.

3. 가을이 됐으니, 긍휼의 신앙의 열매를 열어야 된다. 생명들을 그냥 두면 사망으로 영원히 가 버리니,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야 그가 살아난다.

4.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인하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5. 지난주 말씀에 생명들도 물질도 자기 수고들도 거둘 때가 됐으니 속히 거두라고 했다. 생명들을 거두어 보니, 쉽게 거둬들이는 방법은 화평으로 대하는 것이었다. 화평으로 대해야, 쉽게 거둬들일 수 있다.
6. 농사를 지어서 논밭의 곡식을 거둬들일 때도 힘이 안 들게 거둬들이는 방법은 기쁨으로 좋아하며 거둬들이는 것이다. 그래야 힘이 솟아나서 쉽게 거둬들이게 된다.
7.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전도할 때도, 관리할 때도 화평으로 기뻐하며 해야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목적인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다.
8. 예수님은 성경에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둬들이고, 생명들도 거둬들이게 된다.”라고 말씀했다. 신약 때는 화평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이 시대에는 화평하게 해야만 하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된다.
9. 화평과 화목으로 대해야 전도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된다. 절대 화평으로 대해야 자신도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더욱 함께해 주신다.
10.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서로 화평으로 대해야 평화가 오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
11. 화평으로 거둬들이면 화평으로, 긍휼로 거둬들이면 긍휼로, 죽음으로 거둬들이면 죽음으로 행한 대로 받는다.
12. 생명을 거둬들일 때도 상대가 선(線)을 넘었어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으로 거둬들여야 된다.
13. 화평과 긍휼과 사랑으로 거둬들이면, 쉽게 거둬들인다.
14. 모든 일을 화평으로 해야, 그 일이 의가 되어 잘 된다.
15. 모든 일은 긍휼로, 하늘의 지혜로 해야 잘 된다.
16. 기독교의 생명의 역사는,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 그 성품과 행위대로 관용과 화평과 긍휼과 사랑의 역사다. 그래야 의가 되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요, 물질과 명예의 열매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각종 축복의 열매들이다.
17.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놓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기뻐하며 화평으로 고요 명절을 보내라고 화평의 말씀을 한다.”고 하셨다. 이를 깨닫고 그리하여라.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부르신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2. 불화하게 하는 자는 사탄이 좋아하며 따른다. 자기 임무를 하기 때문이다.
3. 자신이 가치를 깨닫고 화평하게 해야 된다. 수석도 보물인 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줍고, 사고, 찾는다. 화평도 가치를 깨달아야 찾고, 구하고, 취한다.
4. 화평하게 하는 자는 수백억짜리 돌이나 나무나 수석을 얻은 자와 같다. 누구나 결심하고 하면 화평의 전문가가 되고, 프로가 된다.

5. 프로가 하면 금방 표가 난다. 불만하다. 화평함에도 프로가 있다. 그가 해야 된다. 프로급으로 행하는 자가 사탄도 물리치고, 환경이 천국이 되게 한다.

6. 매일 혼자 있어도 둘이나 셋이 있어도 화평을 잊지 말아라.

7. 말부터 화평하게, 행실부터 화평하게 해야 된다.

8. 마음을 거스르게 말하면 화평이 깨지고, 행실을 거스르게 말하면 화평에 깨진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늘 화평하고, 땅의 모든 자들과도 화평하게 해라.

10. 여건상 모두 화평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화평으로 깨부수고 화평을 세워서 의의 공적을 세워야 된다.

11. 꼭 싸울 일이 있어도, 꼭 책망할 일이 있어도 안 하고 화평으로 대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속히 행 해라. 하나님이 어명 하셨으니 지켜라. 안 하면 사탄이 서로 싸우게 하여 괴롭게 한다.

12. 화평하게 해야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신다.

13.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같이 모두 따라 하여라.

14.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늘 보신다.

15. 화평하게 하면, 얻는다.

16.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자가 마음 천국이 되고, 삶의 천국이 된다.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는 자가 없듯이, 화평도 사랑도 심고 가꾸지도 않고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없느니라.

2. 하나님과 성령님이 화평하게 하라고 하시면 이유도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화평해야 하나니, 이것이 없이는 사랑도 축복도 믿음도 진리도 죽게 되느니라.

3. 하루는 말도 행실도 땅으로나 하늘로도 절대 화평하게 행해보고, 하루는 화평을 잊거나 관심 없이 살아 보아라. 화평함이 그 얼마나 이상세계인지 알게 되리라.

4.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도 화평하게,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세상의 모든 자들과도 화평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니라.

5. 하늘을 향한 화평이 깨지면 땅의 화평도 깨지나니, 항상 화평함을 잊지 말지어다.

6. 화평으로 의를 이루어서 의의 값으로 사랑도 물질도 받는 것이니, 이를 알고 깨어 행하여라.

7. 화평이란 선이다. 선은 의다. 의는 돈과 같나니 돈을 주면 원하는 것을 사듯이 의로 하나님이 저마다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다.

8. 운동도 배우면 잘하듯이 화평도 친히 원하고 좋아 배우며 행하는 것이다.

9. 화평이 깨져서 자기 꿈이 깨진 것이다. 다시 화평하여라. 진정으로 행하여라.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말씀 자체가 모두 화평의 말씀이니, 이를 지켜 행하여라.
11. 화평하기 위해 계획하여라. 노력하고 연구하여라.
12. 만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화평도 만드는 것이다.
13. 먼저 화평하여라. 그러면 상대도 따라 행하게 된다.
14. 자존심으로 상대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꼬치꼬치 따지지 말고, 흔쾌히 관용을 베풀어 먼저 화평으로 행하여라.
15. 그 열매를 원하면 심어라. 그래야 거둬진다.
16.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케 하여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사랑하는 자들이니 형제와 화평케 함이 곧 삼위와 주와 화평함이 되느니라.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화목이란 음식을 맛있게 만들듯이 각자 대하는 사람에 따라 좋게 만드는 것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화목의 근본 존재자이시다. 화목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 돼야 하나님의 뜻도 자기 뜻도 이룬다.
3. 화목을 생각에서 잊으면 운명이 딴 길로 가게 된다.
4. 화목에는 돈도 먹는 것도 필요가 없다. 자기가 행하면 된다.
5. 화목은 보석 같아서 원석을 가공하는 수고가 필요하다. 가공해 놓으면 10배, 100배 값이 비싸고 빛이 난다. 행함이 가공이다.
6. 화목하지 않으면 토목공사를 안 하고, 집터를 안 닦고 건물을 짓는 격이다. 얼마나 아름답지 않겠느냐.
7. 월명동 앞산, 뒷산, 옆산도 토목공사를 안 한 곳에는 돌을 쌓지 않았다. 화목은 토목공사의 기초와 같다. 절대적이다.
8. 화목할수록 천국이 더 좋게 만들어지고,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
9. 불만불평은 모두에게 천국도 이상세계도 깨트리는 무서운 암과 같은 적이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절대 화목, 모든 자와 화목이다.
11. 어려워도 성령과 주와 함께하여 화목 실천이다.
12. 성령님은 화목하도록 늘 감동으로 행하신다.
13. 화목하게 하는 자는 신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14. 화목 없이는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

15. 화목한 자를 배척하니, 가정도 민족도 세계도 불화하게 됐던 것이다.

16. 섭리사는 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지켜 행하여라.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화평하지 않게 살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신다.
2. 하나님은 이 시대 모두에게 화평치 않음으로 인하여 행한 대로 각종 고통으로 갚아주신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화평하게 된다.
4. 주를 제대로 알아야 화평하게 산다.
5.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긍휼함도,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6. 화평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화평하게 살게 된다.
7. 화평하게 살도록 기도하여라.
8. 먼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화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화평하여라.
9. 화평하게 사니 천국이였다.
10. 말씀을 해주니 듣고 의문도 의심도 불만도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었다.
11. 화평은 사랑도 진리도 빛나고 불타게 한다.
12. 화평으로 대하고 살아야 상대도 자신도 화평한 얼굴이 된다.

<2020년 10월 4일 주일 잠언>

1.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뺏기지 않는다.
2. 내 생명 같은, 받은 사명 본 문 사도행전 20장 24절 에베소서 4장 11~12절 1. 본문 말씀에 사도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다. 사도바울이 어떤 사명을 받았기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는지 보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였다. 사도바울이 받은 사명은 ‘메시아를 통해 받은 새 시대 말씀을 전함으로 육도 영도 구원을 시켜주는 복음의 사명’이였다.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했다. 2. 이 시대 섭리사 신부들도 ‘사랑 휴거의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생명같이 여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신부로서 사도도 되고, 주의 몸도 되고, 하늘의 심정을 받아 기쁨으로 살게 된다.
3. 주와 복음의 사명이 같고, 이념과 사고와 생각이 같고, 행실이 같으면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사는 천국의 삶이다. 화평의 삶이다.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4. 사명이란, 직책 혹은 의무 혹은 임무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 행했다.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선생 역시 그리하여 시대 섭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과 휴거를 사랑으로 이 시대에 이뤘다.

5.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때는 복음을 전하면 반대자들이 이단의 것을 전한다고 때리고, 묶고, 핍박하고, 죽이던 시대였다. 성경은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각종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다.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몸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리도 모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대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하고 반대한다고 안 하면 안 된다.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전해야 된다.

6.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복음을 뺏기게 된다. 섭리인들 중에는 시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뺏긴 자들이 많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전하지 않게 되고, 타인에게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복음을 뺏겨 잊어버리고 산다.

7. 복음을 뺏기면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을 뺏기게 되고, 구원과 축복을 다 뺏기게 된다.

8. 섭리인들 모두 복음의 말씀을 뺏기지 않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휴거를 이루고, 삼위와 주의 사랑을 받고 살게 됐다. 이제 부지런히 시대 복음을 전해줘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복음의 사명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고 해야 된다.

9.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도 사명을 멀리하게 되고, 사탄은 이를 알고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10. 주를 귀하게 여기려면,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11. 정치인, 공무원, 회사원들은 보직만큼 급여를 받고 산다. 신앙인들도 사명대로 육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께 받고, 기쁨도 얻고, 먹고 누리며 살아간다.

12.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가 준 복음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명을 위해 자기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 했다. 고로 사도가 됐다.

13. 이 시대 섭리인들에게 사명이 무엇이냐고 하면, “목사다. 강도사다. 전도사다. 회장이다. 장로다.” 하며 각종으로 말한다. 이런 사명이 없는 자는, 자기는 무슨 사명이냐고 묻는다.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해주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다. 이로 인해 계급과 직위가 결정된다.

14. 모두 시대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받았다.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된다. 죽기까지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높은 사명이다.

15. 이 세상에서 ‘시대 복음의 사명’같이 큰 사명도 없다. 지역장, 목사, 강도사, 전도사, 지역장, 각 부서장, 교사 모두 복음을 전하라고 받은 사명이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매임이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시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안다.

16. 신약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복음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전하다가 죽었다. 그로 인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살고 있다.

17. 저마다 받은 사명과 직책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며 행해야, 그로 인해 각종 축복을 받는다.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사탄이 꾀고 역사하여 빼앗아 가게 되고,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도 탄 자에게 주게 된다.

18.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끝까지 행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줬다. 그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직위와 사명을 줬다. 가정국, 장년부,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유치등부에게 복음의 사명을 다 주고, 각 부서

사명도 줬다. 받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뛰지 않으면, 하나님도 빼앗아 탄 자에게 주시고, 사탄도 빼앗아 간다.

19. 자기 사명이 중하고 귀한 천직(天職)임을 깨달아야 된다. - 주를 받쳐 주고 증거하는 사명자, 시대 하와 사명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명자, 봉사 사명자, 경제 사명자, 국방 사명자, 건축 사명자, 전도 사명자, 기도 사명자, 계시 사명자,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귀하다.

20. 사명대로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받고 그 위치를 차지하고 살게 된다. 받은 사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1. 저마다 주가 준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생명시해야 된다. 그로 인해 복음을 받는다.

22. 주를 멀리하거나 버리면, 세상의 날을 누리기도 무미하다. 근본 희망이 없어서 기쁨도 사랑도 무미하게 되고, 허무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 아무리 물질과 세상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먹고 마시며 살아도 공허하고 허무하다.

23.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 ‘오직 사명’이다.

24. 자기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서로 사명을 알아 줘야 된다.

25. 사명은 하나님 입장에서 따지면 직위, 임무라고도 하고, 세상 입장에서 따지면 운명이라고도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임무이자, 운명이었다.

26. 자기 사명이 힘들다고 안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있다. 가령, 병을 고치는 사명을 줬는데 힘들다고 안 하면 자기가 그 병이 들기도 한다.

27. 성경 역사를 봐도, 이 시대를 봐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같이 고통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한 자는 천국이나 황금천국, 사랑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됐다.

28. 사명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아하며 간구해야 된다.

29. 모두에게 복음의 사명을 줬으니 생명을 구원해야 문제가 안 생기고, 관리의 사명을 줬으니 생명을 관리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30. 사명이 보석이다.

31. 사명이 영광이다.

32. 사명이 자기 별장과 같다.

33. 사명이 최고 미인과 같다.

34. 사명이 자기 생명과 같다.

35. 사명이 자기 할 일이다.

36. 사명은 죽기 전까지 받은 명이다.

37. 사명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사명을 제대로 하는 자다.

38. 왜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했을까? 복음을 전하다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이

구원받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다 죽었으니, 사랑하는 자의 한을 풀어주는 데 목숨도 아깝지 않았기 때문이다.

39. 선생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았기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시대 복음을 전했다. 20년 동안 산 기도를 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악평하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복음을 멀리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한을 품고, 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신 목적을 품고, 장마철에 죽어가는 과일을 건져서 내 것이 되게 하듯 생명들을 구원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하며 행했다.

40.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 실존체는 주다.”라고 말씀했다. 시대 주의 복음은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말씀, 성경의 6000년 의문을 풀어헤치는 말씀이다. 증거의 사명, 복음의 사명이 그리도 크다. 주도 복음으로 얻었고, 시대 하와도 복음으로 얻었고, 너희도 복음으로 얻었다.

<2020년 10월 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복음으로 만사형통이다.
2. 복음이 아니었으면 서로 만남도 없었고, 현재를 얻을 수도 없었다.
3. 복음을 전하여라. 그래야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주시어 얻게 된다.
4. 복음은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주다.
5. 그의 말은 그가 되듯이, 그의 복음은 ‘그’이니라. 그를 전해주는 것이다.
6.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다.
7. 주를 증거 하려면, 주의 말씀을 전해주면 된다.
8. 복음을 전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한다.
9. 복음이 영원한 영생길이다.
10. 모든 자들은 실상 복음을 기다린다.
11. 복음을 생명시해야, 믿게 되고 뺏기지 않는다.
12. 성령의 말씀을 뺏기면, 그에 해당되는 것도 뺏긴다.
13. 옛 시대 복음은 구시대에 사는 자들이 지켜 행할 말씀이고, 새 시대 복음은 새 시대의 사람들이 듣고 행할 말씀이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명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려면, 사명이 하나님이 맡기신 천직임을 깨달아야 된다.
2. 일이 낙이고, 사명이 낙이다.
3. 사명이 좋아서 행해야 보람이 있다.

4.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멀리하는 자다.
5. 맡긴 일에 충성해야, 왜 사명을 맡겼는지 그 근본을 깨닫게 된다.
6. 맡긴 사명에 충성하여라. 사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
7. 사명도 끝까지 해야 처음부터 수고한 그 열매를 얻게 된다.
8. 사명자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을 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살아야 된다.
9. 종이 주인에게 사명을 받으면 주인집에 살게 된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10.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휴거됐으니,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사명이다.
11. 복음의 사명을 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인하여 축복을 받지 못한다.
12. 복음은 하나님의 운이다. 복음을 절대시하면, 이에 따르는 축복을 절대 받는다.
13. 시대 복음을 뺏기면, 시대 하나님의 운도 축복도 뺏긴다.
14. 복음은 항상 신기한 표적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복음을 생명시해야 신기한 표적이 일어난다.
15. 이 시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주와 함께 개인과 민족과 세계에까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16. 복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다. 고로 그 생각대로 하니, 성령님은 신기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2020년 10월 11일 주일 잠언>

1. 본문말씀 여호수아 1장 5~11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2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역사에 대한 말씀이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의 2세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그 시대 이상세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듯이, 이 시대 주를 따르는 자들도 담대하게 악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이 시대 이상세계를 얻고, 천 년 혼인잔치 역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2. 담대해야, 통이 커야, 마음이 커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시중을 들 수 있다.
3. 마음이 약하고, 배짱이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행하시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다.
4. 섭리인들은 주님을 따라 담대하고 배짱 있게 살아왔다. 젊은 날에 오직 주만 좇으며 전도하고, 가르치고, 낙을 누리면서 의로 악과 불의와 반대자들과 꺾박하는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살았다. 나이도 어린, 시대의 2세들이었다.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밑바닥부터 기어 올라왔다. 모두 잘했다.
5.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복지의 일곱 족속, 31명의 왕들과 싸워 이겼듯이, 이 시대 주도 따르는 자들도 반대자들과 싸워 이겨 왔다. 싸워서 기름진 이상세계의 땅들을 다 차지했다. 그리고 원시인적 집들을 다 부수고, 다시 좋게 집을 짓고 살고 있다.
6. 담대해야 사탄과 악과 싸워서 이기고, 좋은 자도 얻고, 좋은 환경도 얻는다.
7. 월명동도 담대하게 행해서 좋은 환경을 얻었다. 담대하지 않았으면 바위도 돌도 사오지도 못했고, 느려서 쌓지도 못했다. 땅을 살 때도 담대해서 샀다. 배짱이 없으면 못 사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임하여 같이 행하셨다. 나무 심

는 것도 판 자들은 작은 것을 심는데, 선생은 담대해서 100년 300년, 600년 된 것을 캐다가 심었다. 그러므로 웅장하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어느 때 봐도 웅장하다. 담대하지 않았으면 산 절벽에 정자도 못 짓고, 기념관도 못 지었다.

8. 월명동 자연성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담대함의 증거물이자 실체다. 지금도 주는 담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어 이상세계와 모두가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된다.

9. 능력이 있어야 배짱이 좋다. 배짱이 좋은 짐승들은 호랑이, 사자, 치타, 곰, 코끼리, 물소, 악어들이다. 공중을 사로잡는 독수리도 그리 담대하다. 능력이 있어 다스린다.

10. 여호수아는 모세 때 선조들이 건너가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양식을 준비하여 3일 만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왔다. 여호수아 시대만 이야기하면 유익이 없다. 이 시대 우리도 원하는 세계, 가나안 복지 같은 이상세계에 가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있다. 이 시대의 양식만 준비하고 가면, 3일 만에 들어간다.

11. 지난날을 보면, 3일 만에 얻고 행한 일이 너무 많았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니, 준비하고 행하는데 3일이 걸려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월명동 땅을 살 때도 3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 청기와집 뒷산은 40일 기도 후에 3일 만에 얻었고, 동그래산 역시 7일 기도 후 돈을 준비하고 3일 만에 우리 땅이 됐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도 후 3일 만에 우리 땅이 되리라.” 하시어 돈을 준비하고 계약하게 하셨다. 우리 땅이 되도록 통쾌하게 행하셨다. 담대해서 얻었다. 만일 얻지 못했으면, 하나님 상정의 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같이 살 집도 없었다. 정말 배짱 좋게 행해서 얻었다.

12. 하나님의 뜻대로 담대하게 행하는 자만 얻고 누린다.

13. 주와 같이 생각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행해야, 주와 같이 이 시대의 요단강을 3일 안에 건너가게 된다. 이 시대의 요단강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깨달아라.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담대한 자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한다.
2.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과 주의 생각이 있다. 삼위와 주와 같이 해야 담대히 행한다.
3.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은 세상의 담대함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담대함이다.
4. 통이 커야 하나님의 시종을 들며 따라 행한다.
5. 담대한 자가 더 좋은 것을 얻는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고 그 뜻을 좇으려면, 끊을 것을 끊고 자르는 것이 담대한 행위다.
7. 담대한 자를 보고 담대함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
8. 현재만 생각하면 돈도 시간도 노력도 담대하게 투자하지 못한다. 미래를 보는 자가 담대하다.
9. 월명동 자연성전도 미래를 내다보고 모두 담대하게 투자하고 땅을 샀다.
10. 성령의 감동 없이 스스로 담대하다가 실패한다.
11. 분별없는 담대함은 오히려 담대한 만큼 손해가 가게 한다.

12. 담대한 자가 미인을 얻고, 아름다운 곳도 얻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만든다.

13. 있어야 담대하다. 없으면 담대하고 싶어도 담대할 수 없다.

14.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담대하여라. 그래야 이상세계를 이루게 된다.

15. 담대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분별하며 행하여라.

16. 알아야 담대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명히 알고 행하니 담대하게 행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잘 파악하듯이, 알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자가 되어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할 일을 두고 할까 말까 하지 않고 즉시 행하는 자가 담대한 자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할 일들은 제시간에 행해야 습관이 되어 길이 나서 잘하게 된다.

3. 네가 밟는 땅이 네 땅이 된다고 한 이유는 이미 조상들의 땅이니 그 자손들의 것도 되기 때문이고, 조상 때 약속한 것을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주기 때문이다.

4. 신앙의 선조들이 당세 때 못 받고 죽었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후손 때 준다고 약속하셨다. 그렇기에 그 후손이 밟고 다니는 땅이 그들의 땅이 되게 하셨다.

5.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도, 그 후손이 조건을 세우면 후손에게도 주신다.

6. 땅뿐만 아니라 선조 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살면 다 주신다.

7. 하나님은 노아 때 무지개를 증표로 보이시며 홍수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손들에게도 늘 그 약속이 해당된다.

8.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은 그 후손들이 다 받고 누렸다.

9. 약속을 이루려면, 삼위와 그 보낸 자를 믿고 따르기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가나안 복지에 가려면, 그 땅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2. 시대 가나안 복지인 성약역사도 악평자는 못 들어온다. 사랑하고 좋아해야 들어온다.

3.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려면, 최고 좋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4. 땅이나 집을 살 때도 최고 좋다는 것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그것 때문에 담대하게 사게 된다. 이와 같이 시대 가나안 복지인 섭리역사 천 년 혼인 잔치 세계도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야,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담대하게 행하게 된다.

5. 악평하면, 개인적 차원이나 가정적 차원이나 민족적 차원이나 세계적 차원의 시대 가나안 복지 섭리 세계에 못 들어오게 된다.

6. 악평하든지, 안 좋게 보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스로 싫어서 가지 않게 되고, 사서 제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7. 지혜로 충분히 알아보고 개발하면, 좋게 된다. 만들면, 좋게 된다. 사람도 알아보고, 꿰뚫어보고, 만들고, 개발해야 된다.
8. 땅도 만들고, 개발하면 월명동같이 이상세계 천국이 되듯이 사람도 크게 되고, 또 만들고 개발하면,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 된다.
9. 현실만 보고 하지 말아라. 사람도 크게 되고, 만들고 개발하면 월명동의 솔같이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나무가 되듯 하고, 월명동같이 아름다운 환경이 되듯 한다. 이것을 생각하고 가나안 복지도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도 보고 행해야 된다.
10. 사람이나 환경이나 하나님께나 주께나 악평하고 불평하면, 그 세계가 자기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
11. 하나님의 뜻이면, 현재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미래에는 엄청나게 된다.

<2020년 10월 18일 주일 잠언>

1. 절대 믿음은 '절대 표적'을 낳는다.
2. 절대 믿음은 '절대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3. 절대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는 열쇠'다.
4. 불가능한 것을 표가 나게 이루는 것이 '표적'이다.
5. 주를 절대 끝까지 믿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은 책임지고 표적의 역사로 연결해 주신다.
6. 주를 절대 믿으면, 그 정신과 사상으로 '힘'이 온다.
7. 주를 절대 믿는 믿음은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 된 믿음'이다.
8. 절대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 한 번 믿었으면, 영원히 믿어야 된다.
9.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10. 주와 함께하는 믿음, 주를 떠나지 않는 믿음이다.
11.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믿는 믿음이다.
12. 자기중심적 믿음으로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13. 산을 옮기면 절대 평지가 나오듯이, 주를 믿고 실천하면 절대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14. 마태복음 17장 14~20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지 알아야 된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셨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하기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표적이 일어나리라.” 하셨다. 이는 전능자 하나님과 일체 되어 행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말이었다.

15.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산을 옮기는 큰 표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했다. <산을 옮긴다>는 말은, 실제 산을 옮긴다는 말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 표적의 일을 행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산을 옮긴다는 단어를 써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1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모두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기적과 표적이다.

17. 섭리역사는 42년 동안 산을 옮기는 표적들을 행해 왔다. 주를 절대 믿고 행한 자들은 산을 5개씩, 10개씩, 100개씩 옮겼다. 선생도 수만 개의 산을 옮겼다. 모두 표적의 역사들이었다.

18. 월명동 성지 땅에 생가터 200평을 산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그 산을 못 샀으면,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못 지었다. 또 자연성전을 이같이 만든 것도 큰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19. 시대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대 말씀을 듣게 하고 관리해서 성경에 약속된 휴거 역사를 이룬 것은 산이 아니라 지구를 들어다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20. 수준이 낮고, 생각이 낮으면 큰일을 했어도 느낌이 별로 없다. 작게만 보고, 보통으로 보는 자는 기쁨도 적고, 즐거움도 적고, 받은 것도 조금 밖에 못 받는다. 담대하게 믿고 행하는 자가 많이 받고, 산을 옮기는 표적을 계속 일으키게 된다.

21. 죽는 병에 걸린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살려 준 것도 그에게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을 일으킨 것이다. 산을 옮긴 것보다 더 어려운 표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22. 주를 따라 세상을 끊고, 주를 믿고 따른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을 이룬 것이다.

23. 선생이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어린 나이에 대둔산에 가서 20년 동안 이불도 안 덮고,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열매를 따 먹으며 행한 일, 모두가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이었다.

24.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불신하고, 악평하고, 배신한 자들을 시대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산을 옮긴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한 표적의 역사였다.

25. 가정에서, 민족에서, 또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못 살게 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편 것은 산을 옮기고, 지구를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26. 하나님은 시대의 각종 표적들을 더욱 확실하게, 충격적으로 깨닫도록 서해안 밀물을 멈추게 하고, 말레이시아 포덕슨 해변의 밀물을 멈추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며 “그는 내가 시대에 보낸 주다.”라고 하신 말씀을 믿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42년 동안 민족과 세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들을 미리 밝히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서 그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 왕들도 주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구름이 되게 하였고, 베어지는 잡초와 나무가 되게 하셨다.

27. 시대 하나님께 속한 자나 하나님이 보낸 자는 모두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표적을 일으킨다. 그와 같이 모으고 헤쳐야 불가능한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소망과 희망을 이루게 된다.

28. 사람이 스스로는 못 한다. 주와 같이 행하면 된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된다. 이는 주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된 삶을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를 보내어 그때마다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를 통해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고,

천 년 혼인 잔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29. 이 시대의 표적은 절대 주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표적들이다. 그로 인해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표적이 일어나서 시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를 얻게 됐다.

30. 주를 절대 믿고, 하나 되어 행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뻐하신다. 주를 믿어주지 않고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기뻐하며 같이 행해 주시지 않아서 목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31. 10월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나님이 청명한 날씨, 오색단풍을 물들이는 환상적인 계절을 창조하셨으니, 신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님을 사랑하며 성자의 말씀을 듣고 절대 믿고 행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려야 된다.

32. 섭리역사는 절대 믿음의 역사였고, 절대 표적의 역사였다. 42년 동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행하시는 일들을 절대 믿고 행할 때만 불가능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일어났다. 의심하면, 행하지 못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고 행하는 자만 불가능한 일들을 이뤘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주의 말씀을 절대 믿고 행해야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산을 옮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고 듣는 자들이 놀라서 충격 받게 된다.

33. 하나님은 지금도 산을 옮기는 표적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행하고 계신다. 그 순간에는 내용을 다 말하지 못해도 행한다는 말만 하고 지나간다. 사람들은 우리가 행한 것을 듣고, 자기들은 그 일을 얻기 위해 더 먼저 행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루어지고 자기들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이같이 하셨다고 시인한다. 그들이 기다리던 시대 주가 행한 것을 안다면 더 놀랄 것이다.

34. 주와 같이 행하는 자는 귀신도 악한 자도 물러가게 하고, 산을 옮기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홀로 하든지 자기 지혜나 주관으로 하면, 방법부터 절대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큰 산을 옮기는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35. 월명동 하나님의 자연성전을 만드는 데도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표적의 역사가 수백 가지 일어났다. 돌을 사 온 것도, 나무를 사 온 것도,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한 것도 모두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상상도 못 하는 큰 나무들을 심어서 옮기게 한 것도 큰 표적의 역사였다. 산골짜기 불모지에 3.16 휴거기념관을 지은 것도 정말로 산을 옮기는 표적의 역사였고, 세계적인 최고의 인테리어를 한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믿고 행했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켰다. 특히 땅을 산 것이 빼놓을 수 없는 표적의 역사였다. 남의 땅이 내 것이 되게 한 것이 표적의 역사였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시대 주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행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표적들이다.

36. 때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일체 되어 살면,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건과 환경을 틀어 자기가 생각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행할 때 자세히 보니, 하나님 편에 속한 주도, 상대도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강하게 생각나게 하면서 스스로 강하게 행하게 하셨다.

37. 하나님은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롯을 재촉하여 속히 소돔 땅에서 빠져나가 죽음을 피하게 하셨듯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뜻하신 바를 이룰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움켜잡고 급히 행하게 하여 주와 같이 정녕코 이루게 하신다.

38.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재촉하여 빨리 행해야 건너간다. 어차피 갈 길이니 서둘러서 100m 달리기 하는 자같이 걸은 팔지 말고 행해야, 가고 싶어 희망했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표적을 일으키게 된다.

39. 가나안 복지는 때가 되면 순간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역사를 이루어 왔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절대 믿고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행해야 표적이 일어난다.

40.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를 증거하여 생명을 전도한 자는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을 일으킨 자들이다. 주를 절대 믿고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사는 자, 의심 없이 믿고 행하는 자는 지구를 옮기는 것 같은 표적을 늘 일으킨다.

41. <산을 옮기는 과정>을 들어보면 주는 기묘자요, 지혜자라 능히 행해 왔다. 능히 시대 가나안 복지를 얻고, 차지하고 말았다. 생명을 구원하는 데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전을 얻는 데도 그러했고, 이상세계 천 년 혼인 잔치에 속한 것을 얻는 데도 그러했다.

42. <산을 옮겼다>는 말은 ‘생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했다는 말’도 되고, ‘땅이나 환경이나 건물을 사서 자기 것이 되게 했다는 말’도 된다.

43. 힘든 일, 어려운 일,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건을 틀어서 행해 주심으로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44.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미리 말씀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심으로 노아의 여덟 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받아 죽고 멸함을 받은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이었다.

45. 소돔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했던 자들은 다 멸하셨는데, 롯의 가족만 산 것 역시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미리 피하게 하신 것이다.

46.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만 표적을 일으키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복지로 옮겨 온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47. 이삭, 야곱, 요셉이 절대 하나님을 믿고 행하여 그 시대의 명예와 권세를 얻고, 뜻을 이룬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었다.

48. 다윗이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하니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온 민족이 싸워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혼자 싸워 이긴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이었다.

49. 솔로몬이 하나님을 절대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을 지은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50. 엘리야가 절대 하나님을 믿고 악과 싸워 우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51.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절대 하나님을 믿고 행하여 자기를 원수시하고 억울하게 하는 권세자 하만을 멸하고 이긴 것도 그 시대의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의 역사였다. 섭리사 안에서도 하만 같은 짓을 한 자들을 시대 에스더 같은 자가 절대 믿음과 실천으로 행하여 모두 멸하고, 의인들을 구원해 왔다.

52.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해 온 자들은 다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을 일으킨 자들이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악을 이기고, 악평자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도 절대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산을 옮긴 표적을 일으킨 자들이다. 신약 시대 사도들도 그러했고, 주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그러했다. 이 시대에도 주를 절대 믿고 행한 자들은 때마다 얻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휴거를 이뤘다. 모두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을 이룬 자들이다.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를 믿고 행함으로 일순간에 이루었으니, 얼마나 표적이고 놀랄 일이나.

53. 산을 옮겼다는 말은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는 뜻’이다. 이같이 표현함으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려는 단어다. 산은 ‘사람’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모든 만물들’도 될 수 있다.

5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자기 것으로 만든 자들도 산을 옮긴 것 같은 표적을 일으킨 자들이다. ◎ 생활 가운데 지난날 행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산을 옮기는 표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해서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하여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드리는 것에 전력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믿음대로 되기는 되지만, 갖추기 위해 때를 기다려라.
2. 피곤하면 코피가 나오듯이, 믿으면 표가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3. 너는 온전하게 하고 믿었는데 안 된 것이 무엇이나. 주의 이름으로 다시 구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절대 믿고 행할 것을 행해 보아라.
4. 믿으면, 행하고 전진하는 실천자가 되어 자기가 행하니 이루어진다.
5. 새벽부터 주같이 행하는 믿음의 절대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얻게 된다.
6. 성령과 일체 되어 행하는 자는 잘 믿어지고, 매일 표적을 일으킨다.
7. 주를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의심만 하고 악평까지 하면서 가진 모략으로 불신한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주를 믿었을 때는 표적 속에 살았는데 안 믿으니 마음이 괴롭고 하는 것마다 안 되어 그같이 하게 된 것이었다. 믿음이 없으니 사탄이 쥐고 제 맘대로 한 것이었다.
8. 주를 믿으면, 사탄이 분립 되고 생명 길을 가니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
9. 믿었어도, 기뻐하며 때를 기다려야 된다.
10. 나도 어떤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믿고 기도한 것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다 합당한 때에 주셨다. 순서대로 합당하게 주신 것이다. 자연성전은 기도하고 10년 있다가 주셔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건축을 마치니 30년이 되었다.
11. 큰 것은 작은 것을 주면서 주신다.
12. 자기가 잘 된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다. 절대 사랑과 진리로 행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살면, 휴거되어 황금천국에 가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
13. 주를 믿어도 큰 것은 못 얻었다고 하느냐. 휴거되어 황금천국을 얻었으면 큰 것을 얻은 것이다. 또 지금까지 믿고 따르며 행한 것들을 각자에게 줬다. 앞으로도 때가 되면 준다. 믿으면, 바라는 것이 어느 날 홀연히 이루어진다.
14. 육도 혼도 영도 마음도 크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 주면, 감당하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
15. 줘도 어리면 효과가 없다. 줬을 때 주같이 애지중지하고 기뻐하며 삼위의 상대가 되어 살아가야 준다.
16.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믿어도 주지 않는다.
17. 가치를 아니까 수석도 성령님이 표적의 귀한 것을 예비했다가 주셨다.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믿은 것이 이뤄지려면 절대 믿어야 되고, 믿은 것을 행해야 된다.

2.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보낸 구원자를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3.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시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낸 자를 안 믿으면,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다.
4. 세상의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중에서 최고 좋은 것 하나가 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도 많은 사람 중에 최고 좋은 자다. 최고 좋은 물건을 알고 사는 자같이 분별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만 메시아를 만나서 알고, 믿고 살게 된다.
5. 저마다 자기 차원대로 믿고 만족하며 산다. 차원이 낮은 자는 낮은 대로 믿고 만족하며 산다. 모르니, 모르는 대로 처해 만족하고 좋아하며 산다.
6. 원시인같이 사는 자들의 세계에 가 보면, 모두 그 차원의 문화와 삶을 사니 거기에 처해 좋아 만족하며 산다. 그러나 완전히 발달된 자들은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안다.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발달되지 않은 데서 살면, 원시인같이 동일하게 살면서 자기들의 삶을 즐기고 좋아하며 살아간다. 새 역사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자들이 봐야 다른 종교인들이 어떠한지 안다. 신앙의 차원이 낮은 구시대에 사는 자들은 아직 접하지 못한 이상세계의 삶을 전혀 모른다.
7. 자기 행위대로 각각 신앙의 세계에 처해 살아간다.
8. 섭리사가 귀한 것을 깨달아야 신앙적으로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
9.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어려워도 실천해야 얻는다. 얻어놓은 것은 오래도록 쓰고, 보고, 기뻐해야 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께 얻으려면, 절대 믿고 행하며 정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자기 때만 맞춰서 기다리면 안 된다. 주는 자의 때를 맞춰야 되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11. 주를 믿어야, 하나님도 주도 주신다.

<2020년 10월 25일 주일 잠언>

1.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판국이 좌우된다.
2.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다.
3.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보면, 예수님은 늘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나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나 “나를 따라라. 나와 함께 하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기다리던 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잘 되고 형통되고, 불가능한 일을 하는 표적도 일어나고, 자기 소원도 이루기 때문이다.
4.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하셨다. 세상에는 욕심 일생 갚아줄 자도 없고, 영원토록 갚아줄 자도 없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영원토록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다 받으려면, 끝이 없다.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5.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셨다. 이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나 예수를 메시아로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으로 깨닫는 자가 있으리라.”라고 한 말씀이다. 그 말을 하고 6일 후에, <하나님>은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추종하던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옆에 있어 예수님과 말씀하는 것도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예수님이 모세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

아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구나. 또한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온 만왕의 왕이구나.’하고 알게 하셨다.

6. <메시아>는 ‘두 가지 주권’을 가지고 온다. 하나는 ‘구원자의 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만왕의 왕의 주권’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천주의 왕이시며 그 보낸 메시아에게 왕권을 주고 그에게 임하여 같이 행하신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다. 이 두 가지 주권을 알아야, 그로 인해 오는 기쁨과 이상세계를 얻고 살 수 있다.

7. 주를 따라야, 그와 함께해야, 행한 대로 받게 되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표적이 일어난다. 자기 수고로 인해 얻는 것도 있지만 주와 함께 하여 얻는 것이 10배, 100배 더 크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자기 위치에서 어디에서든지 주를 바짝 쫓고 따르며 주와 함께해야 된다.

8. 주가 “나를 따라라.” 할 때, 그때가 따를 때다. 그때가 지나면, 따르라고 하지 않고 “나를 믿어라.” 한다.

9. 주를 따르는 위치대로 주의 하는 일이 보이고 들리고, 감동도 받고, 표적도 보게 된다.

10. 어디에서든지 주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바짝 따라야, 주와 함께 살게 된다.

11. 만사에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추풍낙엽같이 때가 일순간 사라진다. 그러면, 다시 자기 때와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12. 제때 못하면 혼자 하게 된다. 혼자 하면 심심하고, 재미가 없고, 무미하고, 기쁘지도 않다.

13. 성령과 주와 함께 하며 사는 삶이다. 성령과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무미하고, 삶의 기쁨도 재미도 이상도 없다.

14. 바다의 고기들도 기류를 타지 않으면 힘들어서 멀리 못 간다. 이와 같이 하늘의 기류를 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함께, 그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크게 행하지 못한다. 행해도 잘 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사랑을 해도, 소원한 것을 얻어도 그때뿐이고, 식어버린 겨울철 불같이 무미하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늘 대화하며 행해야 매일 왕권을 가진 자와 살아가고, 그 기쁨과 이상과 사랑을 충만하게 느낀다. 왕과 같이 사는 기쁨과 권세와 사랑과 이상세계다.

16. 성령과도 주와도 대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바로 무미한 삶이 되어 버린다. 무미한 삶은 보람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

17. 세상의 모든 자들은 기쁘게, 보람 있게, 즐겁게 살기 위해 그렇게도 잘해놓고 산다. 그러나 세상만사를 다 누릴지라도 영의 구원, 육의 구원을 못 지키고 살면 곤고하고, 근본의 기쁨도 없고, 허무하고 허탈하다.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에 어떤 자라도 그러하다.

18. 섭리인들은 만날 자도 만나고, 받을 것도 받았다.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곤고한 자는 ‘주를 더 가까이 쫓고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를 가까이 쫓고 함께했는데 기쁨과 이상의 맛이 없다면, 이는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19. 늘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깨어 살아야, 느낀다.

20. 귀한 가치를 모르면, 보고 들어도 그냥 지나가게 된다. 성령이 감동을 주고, 주가 말씀해 줘야 다시 깨닫게 된다.

21. 있어도, 보아도 모르는 자는 감동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의 말씀을 듣고 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2.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 하고, 주의 말씀을 깨달으려 해야 된다. 가치를 배우고 알아야, 깨닫게 된다.

23. 오직 주를 따르고 함께하는 자만 시대의 보람을 누리고, 매일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아간다.
24. 성령과 주와 일체 되어 살지 않으면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
25. 매일 성령과 주를 생각하며 일체 되어 살지 않으면, 성령과도 주와도 멀어진다. 느끼지 못하게 된다.
26. 설교 때만 깨닫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성령과 살아가면서 각종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은혜다.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주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 가치를 깨닫게 되고, 믿고 사랑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27. 성령과 주와 떨어지면 안 보이고, 못 느끼고, 그 행함도 모르고, 기쁨도 없다. 눈으로 보든지 멀리서나 가까이서나 같이 행해야 보이고, 느끼게 된다.
28. 가을의 아름답고 오색찬란한 경치를 봐야, 가을을 느끼고 감동받게 된다. 또 거기서 행해야 더 느껴지고 기쁘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보고, 같이 행해야 된다.
29. 성령의 감동과 함께함이 성령을 보는 것이다.
30. 주를 믿고 행함이 주를 보는 것이고, 그와 일체 된 것이다.
31.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믿고 따르고 같이 행하는 것이 삼위와 주를 보는 것이다. 더 가까이하려면, 주와 성령의 몸이 되어 더 알고 행해야 된다.
32. 성령과 주와 대화하며 같이 행하지 않고 홀로 살면, 삶이 아주 무미하다.
33. 성령과 주를 보고 같이 행해야 된다. 그러나 성령과 주를 보고 같이 행해도, 대화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삶이 무미하고 만족도 없다.
34.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그리도 크다. 성령과 주를 가까이 느끼고, 가치를 알고 사는 것이 그리도 크다.
35. 귀한 물건이나 환경이 있어도 가치를 못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도 주도 늘 가치를 느끼게 해 주시는데, 가까이 보고 행해야 느끼게 해 주신다.
36. 시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멀리하고 외면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후에는 무미함 속에서 해그늘의 삶을 살다가 끝났다. 반면, 새 시대를 따른 자들은 날마다 번창하고 기뻐하며 따랐다.
37. 정치, 경제, 예술, 학문의 세계에서 그렇게도 즐기고 산 자들은 모두 허무와 허탈과 곤고함을 맛았다. 새 시대를 맞지 못하고, 성령과 주를 맞고 함께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최고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다.
38. 빌립은 주와 같은 시대의 주관권에서 살았어도 하나님도 주도 보고 살아야 기쁘다고 했다. 사랑하니, 봐야 기쁘다. 주를 알고, 믿고, 같이 행해야만 빌립같이 만족하여 기쁘다.
39. 주를 보고 사는 자, 주를 가까이 느끼고 사는 자, 주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이다.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메시아는 영적, 육적으로 모두 왕이다. 영만 구원시키고 육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둘 다 구원시켜주었으니, 그가 영적, 육적으로 왕이 되어 왕 노릇한다.

2.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니, 그 보낸 자도 함께 세상을 다스리면서 왕 중의 왕 노릇한다.
3. 구약 때 선지자들만 돼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왕들을 다스리셨다. 메시아는 왕이다. 그 어떤 자든지 믿고 따르면 모두 한 생명같이 주관하고 다스린다.
4. 행여 세상 왕들이 믿고 따르지 않아도,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주권이 있고 왕권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다스려 나간다. 세상 왕들 자신은 몰라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고 행한다. 고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되어 간다.
5.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듯이, 그가 보낸 메시아도 그러하다.
6. 세상의 왕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다스림으로 평화의 세계가 되고, 이상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7. 성경에 그가 와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왕 노릇한다고 했다. 이는 메시아가 왕들의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 씀이다.
8.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대로 하신다. 주도 그러하다.
9. 주가 왕권을 가지고 왔으므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종교세계나 세상의 어떤 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행한다.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모르고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심판도 하고, 의로운 자를 잘 되게도 해 준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나라들이 간구하면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그 뜻대로 되도록 세상의 왕들도 선악을 행한 대로 갚아주고 다스린다.
10.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세상의 왕들을 추천했듯이, 메시아도 하나님께 세상의 왕들을 추천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11.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영육으로 왕 노릇한다.
12. 제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신앙의 왕으로만 알고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는 못 보고 모르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화시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시고, 그 옷도 빛나는 모습으로 보이시며 성경의 그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메시아는 깨닫고 대하는 대로 자기를 영육으로 다스려 주신다.
13. 메시아, 그는 모든 것의 왕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왕 노릇을 한다.
14. 메시아는 지혜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며 사랑의 왕이며 다스리는 왕이다. 또한 예술의 왕이다.
15. 세상 모든 자들은 한 사람의 각 지체같이 개성의 왕이지만, 메시아는 모든 지체를 가진 한 사람같이 개성의 왕이 아닌 전체의 왕 노릇을 한다. 하나님이 육으로 쓰시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왕이면 왕 노릇을 해야 왕이다. 왕이라면 실제 왕 노릇을 한다. 하나님은 구원의 왕이시니 메시아를 통해 육도 영도 구원하시고, 그를 육적, 영적 왕으로 삼고 쓰시며 육의 세계도 영적 신앙 세계도 그를 통해 다스리신다.
2. 세상의 왕들은 행정적인 왕이다.
3. 메시아는 육적 세계도 영적 세계도 왕이 되어 다 다스린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듯이 거침없

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4.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자신의 뜻대로 틀고, 행한 대로 갚아 주며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주도 하나님과 일체 되어 같이 행한다.

5.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적 신앙 세계의 왕 중의 왕으로만 알았지 육의 세계에서도 왕 중의 왕인 줄은 몰랐다. 모르니, 육적인 면으로 왕의 혜택을 못 누렸다.

6. 운전수는 운전을 하듯이, 왕은 왕의 사명을 한다.

7. 메시아는 개성의 왕이 아니다. 전체 왕 중의 왕이다.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랑의 대상이 됨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위치, 사랑의 왕의 입장이다. 육적으로나 영적 신앙적으로나 왕의 자리다.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왕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사랑의 왕의 위치를 점점 상실하게 된다.

2.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깨닫는 대로, 행한 대로 대해 주신다.

3.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포하신 대로 부지런히 깨닫고 행하기를 재촉하며 가야 할 때다.

4. 세상의 유혹과 악평, 사탄이 악평자를 통해 하는 글과 말들을 불신하고 부지런히 주를 좇으며, 주가 주는 말씀을 절대시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5. 주를 믿고 따라와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을 깨달아야 된다. 이를 모르면, 그 면을 행하지 못하게 된다.

6. 육적인 사랑의 대상이나 정신적인 사랑의 대상이나 같다. 하나님 생각에 “이 자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시면, 그 시대급으로 실제 사랑의 대상인 것이다.

7. 아들 시대에는 아들로써 아들급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신부시대에는 신부로서 사랑의 실제 대상이 된다. 이를 깨닫고 살아야 신부로서 사랑도 받고, 혜택도 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살게 된다. 매일 마음도 생각도 행위도 하나 되어 살아야 된다. 붙어살아야 느끼듯이, 일체 되어 살아야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8. 제 시대에 따라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지금은 성약시대다.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도 아니고 신부시대다. 성령과 주의 시대다.

9. 이 시대 섭리사에 와서도 근본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구시대와 동일하다. 성령이 어서 생명들을 챙기고 거두어들이라고 말씀하셨다.

10. 사탄들이 생명에게 손을 대면, 가르쳐서 대적하게 하고, 성령과 주와 가까이 행하여 일체 되게 해야 된다. 올해 추수할 것은 올해 해야 된다. 겨울이 오면 눈보라가 치듯이, 신앙의 때도 그러하다. 모두 뛰어라. 잡아주고 이끌어 주어라. 말씀을 주면 매일 읽고, 또 읽어야 된다. 잊으면 죽는다. 싸워 이겨라. 그래야 자기 것이 되어 살게 된다. 지금은 성령과 주와 함께할 때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2020년 11월 1일 주일 잠언>

1.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지시에 의해 기록한 말씀이다. 그 시대뿐만 아니

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다.

2.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했다. 이는 “너희가 신앙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이지, 너희의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끝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유된 몸을 가지고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자들은 육체로 흘러가 끝나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다.

3.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사망에 묶인 것이 풀어짐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고 사망에서 풀어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대 말씀을 주어 사망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4.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벗어나고 같이 우리들의 영혼이 애굽 같은 구시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때를 만났다. 주는 새 시대 말씀을 주어 따라오게 하였다. 그 자유된 몸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좇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목적을 좇아야 된다.

5. 갈라디아서 5장 14~15절에는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했다. 이는 “율법 말씀을 이뤘 놓고도 서로 물고 뜯으면, 또다시 멸망으로 가게 되니 조심하라.”라고 한 말씀이다.

6. 갈라디아서 5장 16절~17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했다.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기울어져서 욕에 속한 일만 하고, 욕에 속한 삶만 살게 되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7.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다. 이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그리스도를 좇아 구시대에서 벗어나 새 시대로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다.

8.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 육신의 일들은 이성과 탐욕과 물질에 속한 일, 우상을 섬기는 일, 먹는 것과 입는 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 등 각종 욕에 속한 일들이다. 이러한 육적인 일을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했다. 성령으로 행한다면, 육적인 일들은 방향이 다름으로 행하지도 않게 되고, 거칠 필요도 없게 되고, 육적인 일들과 싸울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을 좇아 행해라.”라고 말씀했다.

9. 성령을 좇아 행함이 무엇이나. ‘성령의 때’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성령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행하신다. 반드시 제때에 할 일이 있다. 특히 성령님은 그때의 할 일을 시대 보낸 주가 먼저 행하게 하신다.

10.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 일 중에 보다 욕에 속한 일들을 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시키시고,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시를, “지금은 그런 일들은 다른 자에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해 놓은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주어라.” 하셨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감동시켜서 교단과 기획실에서 계획해서 오는 지도자들 혹은 일반적으로 오는 자들, 그동안 외부에서 섭리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대접해 주고,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것들도 보여주고, 이야기도 해 주고, 사연을 나누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이 하는 일들을 말해 주어라.” 하셨다.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매일 6명씩 오는 중고등부 교사들과 캠퍼스 지도자들과 청년부 지도자들과 외부 손님들을 데리고 온종일 가르쳐 주고, 해 놓은 것을 보여주고, 늦도록 대접해 줬다. 월명동에 오지 못하는 자들과 세계 각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모여 있으면 온라인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해 놓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또 온라인 모임을 통해 말씀도 해 주고, 집회도 해 주었다.

11. 머리가신 주 그리스도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해라. 자기 위치에서 보다 육적인 일들은 그 일을 해야 될 자에게 맡기고, 영적인 일에 뛰어들어서 해야 된다. 머리가 되는 지도자들을 코치해 주고, 부지런히 생명들을 관리해 주고, 코로나 기간에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들과 환난을 이긴 자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대접해 줘야 된다.

12. 사람은 안 보면 답답하고, 생각이 다른 데로 돌아간다. 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밀어붙이며 행해야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께 자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자기가 해 놓은 것을 성령께 이야기하고 대화해야, 성령도 칭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은 물론 다 아시지만, 말해야 알아주신다. 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해야 안다.

14. 문제만 제시하지 말고 자꾸 배우고, 행하고, 봐야, 모든 문제가 풀어진단다.

15. 신앙의 삶은 알고 보면 간단하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생활하며 사는 삶이다. 하늘을 모시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신부의 삶이다. <마무리> ◎ 그동안 모두 코로나로 인해 수고 많았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각종 힘든 일을 이긴 자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대가로 축복해 주십니다. ◎ 이 좋은 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0월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냈습니다. 11월은 서로 대화하고, 해 놓은 것들을 보여주고, 생명들을 챙기면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수고한 자들과 같이 가을 나들이를 하는 달입니다. 성령께서 11월은 특히 이와 같이 하면서 올 한해를 더 매듭지으라고 하셨습니다. ◎ 선생은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명동에 몇 명씩 왔을 때 그들이 수고한 일들을 들어보고, 대화도 하고, 잘했다고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들을 이야기해 주니, 수고했다고 하며 칭찬도 해 주고, 정말로 큰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곳도 수시로 다니면서 감독해 주고, 안전을 위해서 교육해 주기도 하고,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방향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전에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지금은 잠깐 잠깐 가서 이야기해 주고, 사람들에게 해 놓은 것들을 보이며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모두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 같은 시간을 서로 나누면서 지내고, 이번 한 달 동안에도 그와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금주에 “성령을 좇아 행해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주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 11월에는 집회를 집중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또 월명동에 온 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설명도 해 주고, 대화도 해 주겠습니다. 부서 모임을 해 주었으니, 지도자들은 그 방향대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브이로그(V-log)나 사연편지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전해주고 말해주겠습니다. ◎ 모두 금주 말씀대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모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으로 행하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안 될 것도 되게 해 주신다.

2. 성령과 함께 행하면 기쁨으로 행하게 되고, 모두 풀어주어 잘 되게 되고, 제때를 따라 행하게 되니 꼭짓점에서 행하게 된다.

3.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여건을 틀어서 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4. 성령께 매일 성령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간구하고 행해라.

5. 자기에게 속한 것은 자기가 성령과 의논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다.

6. 성령님은 주로 인하여 인도할 것은 주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니, 항상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라.

7. 주 역시 성령과 일체 되어 행하지 않으면, 육적인 쪽으로 행하게 된다. 성령의 뜻대로 하면, 행한 후에도 성령을 따라 행한 사연을 확실히 알게 된다.

8.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살지 않는 길로 갔을 때 트신다.

9. 성령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도 하고, 현실에 닿으면 늘 물어보고 행하여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이 항상 인도해 주신다.
11.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자는 없다. 그만큼 성령이 늘 행하신다.
12. 성령은 누가 메시아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
13.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반드시 하고자 해야 된다.
14. 늘 성령의 신부가 되어 살면서도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15.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 여신이다. 우리에게는 천모이다. 전지전능하신 존재이다.
16. 자기 생명같이 성령과 일체 되어 살아야 된다.
17. 성령을 형식으로 모시고 살면, 성령과 안 통한다. 가식으로 모시고 대하고 살려면 하지 말라고 하셨다. 실제로 우러러보며 좋아하며 진정 사랑하면서 현실 속에서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영체라도 멀리 생각하면 멀리 계신다. 생각 일체 되어 사랑하는 사람같이 대하면서 살아야 통한다.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시어 절대 믿게 해 주신다.
2. 성령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낸 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를 따르고 좇게 해 주시는 일을 중점으로 행하신다.
3.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4. 성령님은 천모이다. 영의 어머니이다. 내적 일을 하신다.
5. 성령님에 관한 것은 기본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니, 너희도 읽고 행하여라.
6. 성령님은 그 시대 보낸 주를 통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신다.
7. 신부시대 때 성령님은 신랑이시다. 우리는 신부들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행하여라.
8. 성령님을 배우려면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행하여라. 그러면 같이 행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된다.
9. 지금은 성령시대다. 주의 시대다. 성약역사 시대다.
10. 성령으로 행해야, 얻는다.
11. 성령님을 믿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믿고 같이 사는 시대다.
12. 성령님은 모시고 같이 살아야 더욱 함께 행하신다.

13. 구약은 '하나님시대'라고 하고, 신약은 '성자시대'라고 하고, 성약은 '성령시대'라고 한다.

14. 성령시대라 성령과 주가 함께 행하시니, 성령과 주가 말씀하심을 듣고 같이 행해야 된다.

15. 오늘도 말씀하시니, 지금도 성령님과 말씀을 쓰며 행한다.

16. 성령님이 절대 말씀을 먼저 써 보내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써 보낸다.

17. 성령님이 각자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전한다. 걱정 말고, 주 믿고, 변함없이 하면, 성령님이 주와 같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전해주라고 하셔서 전해준다. 사랑이다. 변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주도 동일하다. 다 해결해 주니, 걱정 말아라.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시어 절대 믿게 해 주신다.

2. 성령님은 가장 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보낸 주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그를 따르고 좇게 해 주시는 일을 중점으로 행하신다.

3.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4. 성령님은 천모이시다. 영의 어머니이시다. 내적 일을 하신다.

5. 성령님에 관한 것은 기본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니, 너희도 읽고 행하여라.

6. 성령님은 그 시대 보낸 주를 통해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신다.

7. 신부시대 때 성령님은 신랑이시다. 우리는 신부들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좋아하며 행하여라.

8. 성령님을 배우려면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행하여라. 그러면 같이 행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알게 된다.

9. 지금은 성령시대다. 주의 시대다. 성약역사 시대다.

10. 성령으로 행해야, 얻는다.

11. 성령님을 믿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믿고 같이 사는 시대다.

12. 성령님은 모시고 같이 살아야 더욱 함께 행하신다.

13. 구약은 '하나님시대'라고 하고, 신약은 '성자시대'라고 하고, 성약은 '성령시대'라고 한다.

14. 성령시대라 성령과 주가 함께 행하시니, 성령과 주가 말씀하심을 듣고 같이 행해야 된다.

15. 오늘도 말씀하시니, 지금도 성령님과 말씀을 쓰며 행한다.

16. 성령님이 절대 말씀을 먼저 써 보내고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셔서 지금 써 보낸다.

17. 성령님이 각자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전한다. 걱정 말고, 주 믿고, 변함없이 하면, 성령님이 주와 같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전해주라고 하셔서 전해준다. 사랑이다. 변하면 안 되고, 끝까지 다. 주도 동일하다. 다 해결해 주니, 걱정 말아라.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극적인 장점으로 극적인 단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더 좋은 것이 있나 찾아보아라. 그래야 받은 것을 더 기뻐하며 쓰고 보람을 누리게 된다.
3. 좋은 것을 찾고 기뻐해도 그중에 극적인 단점이 있다. 장점으로 단점을 해결해야 된다.
4. 사람도 보통으로만 보지 말고 더 극적인 장점을 찾아내라.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귀하게 여기고 보람을 느낀다. 반면 극적인 단점도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극적인 장점을 보고 극적인 단점을 해결하고 대해주면, 결국 장점만 남아져서 월명동같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자가 된다. 만물도 사람도 그러하고 회사 운영도 그러하다. 집을 지어도, 땅을 사도 환경적으로도 그러하다.
5. 섭리사, 극적인 장점이 있다. 찾아라. 극적인 단점도 있다. 찾아라. 그리고 장점을 희망으로 삼고 단점을 과감하게 해결하여 황금천국의 삶을 살아라. 주도 그러하고 너희도 그러하다.

<2020년 11월 15일 주일 잠언>

1. 좋은 곳이 있는데 길을 안 내겠느냐. 하늘나라, 좋은 곳이 있는데 길을 안 내겠느냐.
2. 길을 좋게 닦아야, 사람들이 많이 쉽게 간다. 하늘길도 그러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어 ‘그 시대의 새길’을 낸다. 그 길로 가야만,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3. 주가 ‘길’이다. 주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다.
4. 길을 닦다 말면, 그 길로는 목적지에 못 간다. 다른 자들은 길을 하늘나라까지 못 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도 천국에 못 간다.
5. 시대마다 갈 길이 다르다. ‘구약 길’이 다르고, ‘신약 길’이 다르고, ‘성약 길’이 다르다. 그 시대의 주인만이 하나님과 같이 그 시대의 길을 닦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했다. 예수님은 후대를 위해 죽으면서까지 그 길을 냈다. 예수님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였다.
6. 세상 길은 책임자가 길을 내다가 죽으면 다음에 따라오는 자가 내지만, 생명길은 메시아가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내지 못한다.
7. 길은 완성해야 된다. 길을 닦다가 바위 절벽이 나와서 못 닦고 말면, 아무도 그 길을 갈 자가 없다. 천 리를 닦았어도 10m를 못 닦았으면, 되돌아가야 된다. 고로 메시아는 그 시대의 길을 완전히 내고 만다. 길을 내놓고 가르쳐 주며 따르는 자들을 이끌고 간다.
8. 메시아가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중심해서 모든 것을 받으신다. 그 외에는 길이 없다. 구원받는 자는 메시아에게 갔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삼위의 길, ‘삼위 기대’를 지켜야 된다.
9. 메시아는 경제, 예술, 정치, 학문 등 세상만사 모두의 길이 된다. 그로 말미암아 잘되고 형통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보이는 사명자인 주를 통해 행하시기 때문이다.

10. 메시아 외에는 ‘천국 길이 되는 자’가 없다. 다른 자들은 모두 지체라서 그 위력도 모양도 구상도 지체 정도다.
11. 주와 같이 해야만 영원한 황금천국의 길로 가고, 만사도 그 수준급으로 행해진다.
12. 길은 ‘말씀’으로 낸다. 그리스도가 ‘그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낸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못 풀면, 시대의 길을 내지 못한다. 성경을 온전히 풀어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길을 내는 자가 메시아다.
13. 성약시대에는 ‘성약 길’이 필요하다. 황금천국으로 가는 길은 ‘사랑 길’이다. 황금천국은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사랑의 길을 닦아 놓은 대로 생활하며 가야 들어간다.
14. 성약의 메시아는 그 자체가 사랑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대상체이기 때문이다.
15.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길을 불평함으로 가다 말아서 목적지인 가나안 복지까지 가지 못했다. ‘성약역사 신부의 길’도 가다 말면, 영원히 가지 못한다.
16. 길을 목적지까지 가게 하기 위해 낸 것이니, 끝까지 가야 된다.
17. 주가 ‘길 자체’다. 모두 주를 통하지 않고서는 황금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통하지 않으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같다.
18. 주로 말미암아 ‘하늘 신부’가 되고, ‘신부의 사랑’도 하게 된다.
19. 주는 ‘사랑의 머리’요, 구원받는 자는 그와 사랑으로 일체 되어 천국에 간다. 황금천국의 길은 ‘사랑의 길’이다. ‘사랑으로 휴거 되어 가는 길’이다. 휴거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일체 되어 사는 것이다.
20. 주가 닦아 놓은 길은 주만이 안다. 따르는 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며 따르게 한다. 이단 종교의 지도자들은 누가 보아도 육적인 삶의 길을 닦았다. 자기 이념과 사상의 길을 가면서 따르게 하고, 결국 육으로 끝나게 하고 만다.
21. 세상의 그릇된 종교들을 보아라. 그릇된 말과 주장을 하는 자들을 보면, 자기주장과 논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논리를 펴다가 죽는다. 영생 길과는 무관하다.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고 끝내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로 각종 심판을 하고 계신다.
22. 주는 ‘시대 사랑의 천법’으로 길을 내고, 생명들이 그 길을 가게 함으로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었다. 그 길은 ‘말씀의 길’이다.
23. 말씀 자체가 사랑이니, 말씀의 길이 ‘사랑의 길’이고 ‘신부만이 가야 할 길’이다. 세상에서 닦아 놓은 길을 가듯이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사랑하며 살면서 가는 길이다.
24. <주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하는 일 전체가 맞지 않고, 곤고하다. 사랑을 해도, 재물을 쌓아 놓아도,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누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뜻과 맞지 않아서 허무한 삶을 살기에 곤고하다. 마치 계절에 해당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 맞지 않아서 곤고한 것과 같다.
25. 하나님의 시대에 맞게 살아야 된다. 시대에 맞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허무로 끝나고, 모든 계획도 소망도 해가 지면 어둠으로 덮이듯 끝나게 된다.
26. 기성인들은 시대에 맞게 살지 않으니, 지는 해를 뜨는 해로 보고 희망으로 계획하며 살아간다.
27. 종교의 소경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로 따르는 자들을 인도했다. 성령이 없는 자체 감동으로 행하며, 성령이 시대 주께 인도해 주셔도 자기 주관대로 육성으로 행했다.

28. 하나님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성령의 진리를 자기 주관대로 가르친 자들은 모두 허무와 곤고와 멸망으로 끝나거나 구시대로 끝나고 말았다.

29. 지금은 '사랑의 시대'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사랑의 신부의 길, 황금천국으로 가는 삶이 얼마나 중하고, 귀하고, 보람찬지 깨달아야 된다.

30. 저마다 '주께 오는 길'을 닦아야 된다. 좋다고만 하지 말고, 각자 말씀의 길, 사랑의 길을 확실하게 닦고,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 주가 모든 것의 길임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성령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는 길의 축복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주가 가는 길이 인생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2. 주와 같이 행해라. 그리하면, 생명길로 가는 자다.
3. 주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다. 그가 말씀하는 말이 곧 생명의 길이다.
4.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 메시아는 그 자체가 생명길이다. 진리다.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행하고 있으시기 때문이다.
5. 주와 같이 가는 자는 육도 영도 생명길을 가는 자다.
6. 주를 악평하는 자는 생명길, 구원 길을 벗어난 자다. 육도 영도 사망길을 가고 있는 자다.
7. 생명길을 가지 않으면 사탄도 악마도 귀신들도 자기 몸을 삼고 산다.
8.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사는 자가 생명길을 가는 자다. 주 자체가 생명길이다. 진리의 길이다.
9. 주는 하나님의 몸으로 쓰인다. 하나님은 그 육인 주를 모든 자들의 생명길로 삼고 쓰신다.
10. 주가 모든 것의 길이다. 모든 것의 진리다.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길은 닦지 않고서는 나지 않는다. 영생의 구원 길도 메시아가 닦지 않고서는 생기지 않는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주와 일체 되어 사는 것이 그 시대 생명의 길이다.
3. 이 시대의 길은 마지막 최고의 길, 창조 목적 휴거를 이루는 절대적 사랑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사는 길이다.
4.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5.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고 복직하여 정상으로 해야, 휴거도 구원도 제대로 이루고 사는 것이다.
6. 사람을 만들고 구원이다. 휴거를 시켜야 사탄에게 안 뺏기고 무너지지 않는다.

7. 주를 믿고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자는 사망의 고생길로 가게 된다.
8. 주와 일체 되어 사는 길이다.
9. 성령님의 사랑을 매일, 매시간 잊지 말고 대화하며 같이 사는 삶의 길이다.
10.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통한 영원한 사랑의 길이다.
11. 성령과 주와 일체 돼야 돕는다.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물> ‘관리’, <사람의 생명> ‘보살핌’이다.
2. 먼저 <만물> ‘관리와 보살핌’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이 ‘절대적으로 관리하고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절대 자기 생명과 형제들의 생명을 보살피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뜻을 이루고, 그로 인해 원하는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인 휴거도 이상적으로 이룬다.
3.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기 생명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병들고, 고생하고, 죽기까지 한다.
4. <먹고, 자고, 행함>이 자기 생명을 ‘구원받도록 살피는 것’이다.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주와 같이 살도록 살피고 행하며 사는 삶이다.
5. 주신 <만물>은 자기 것이든지, 타인의 것이든지, 하나님의 것이든지, 매일 자기 것같이 살피서 천국같이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야 된다.
6.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만물들을 잘 살피고 관리해야 된다. 천지만물은 하나님 집의 정원이다. 시대 신부되어 같이 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구상을 받아 만들고,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목적 이상세계를 이루며 행하고, 저마다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성령과 주와 대화하며 살아야 된다.
7. 생명은 예리하고 약하다. 아기같이 가까이 대하고 보살피며 살듯해야 된다.
8.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생명들을 보살피신다.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같이 생명들을 매일 잊지 말고 살피야, 죽을 생명도 절대 죽지 않고 산다.
9.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생명을 살핀다.
10.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힘과 생각으로는 100% 못 살핀다. 고로 서로 생명을 돕고 살피라. 자기 생각에서 잊고 못 살피는 때가 많다. 같이 챙겨주며 살피 주어라. 그러면 자기 생명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지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지켜 주신다.
11. 지구상의 사람 생명과 만물 속의 생명들은 매일 점검하고 잘 살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다치고, 고통을 받고, 죽기도 한다.
12. 자기 욕도 영도 사망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주와 같이 살피라.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욕도 영도 살피서 자기 생명을 사탄이나 악인들이나 악평자에게 뺏기지 말아라.
13. 자기 주관 중심, 자기중심 하면, 생명을 욕도 영도 사망권으로 뺏긴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생각으로 매일 살아라.

14. 자기 생각은 사망권의 생각이다. 오직 전능자의 생각과 주의 생각만이 생명권의 생각이다.

15. 땅이나 집이나 환경을 사 놓으면 개발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냥 놓아두면 무용지물이다. 생명들도 그러하다. 전도한 생명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좋게 아름답게 개발하여라.

16. 생명 관리와 보살핌은 성령과 주와 함께 완성될 때까지 집중하여 살펴야 된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 잠언>

1. 이스라엘 통일왕국시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은 자격이 없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추천하여 세워진 왕으로서 처음도 끝도 안 좋았던 왕이다. 사울 왕의 경력을 보면, 그는 ‘교만의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추천한 중심자 사무엘을 무시하며 대하는 자였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함으로 육으로도 영으로도 여생을 망친 자였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돕지 않음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할복자살하여 죽었다.

2. 통일왕국시대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은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세우신 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왕이다. 처음 다윗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뽑으셨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만 해 드렸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나대신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하시어 기름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부었다.

3. 다윗 왕의 경력은 화려하다. 첫째, <다윗 왕>은 ‘신앙의 영웅’이었다. 둘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해주셨으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시편71:6).”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다.

4. 셋째, <다윗 왕>은 ‘전쟁의 영웅’이었다. 다윗 왕이 하나님과 일체 되어 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직접 다스려 주셨다. 다윗 왕이 통치했던 때는 시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아람, 아말렉 등의 나라들과 항상 전쟁을 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에 감사하며 ‘시편 18편’을 써서 기쁨의 승전가로 찬송했다.

5. 넷째,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정치가’로서 지구상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과 같이 통솔하며 다스렸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몸이 되어 그 시대를 다스렸다. 다윗 왕은 성경에 나오는 역대 최고의 정치가로서 이 시대에 내놓아도 이같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치가는 없다.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고, 문제도 많고 말도 많은 정치가들을 보면 다윗 왕이 생각난다. 다윗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

6. 다섯째, <다윗 왕>은 문학가요, 음악가요, 시인이요, 못 하는 것 없이 다양하게 잘했다. 다윗 왕은 온 백성들이 음악의 예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했다. 섭리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하게 했다. 다윗은 예술과 문학의 재능으로 ‘시편’도 썼다. ©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면서 본문 말씀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7. 여섯 번째, <다윗 왕>은 기도의 용사였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애원하는 기도’를 했다. 애간장 타는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하며 매달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어드리는 기도’를 했고, 기도를 시적으로 읊으며 간구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감동되게 해 드렸다.

8. 다윗은 딱딱한 기도를 하기보다 ‘감동적인 기도’, ‘웁는 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기도’,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는 기도’, ‘행하고서 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다.

9. 다윗은 늘 하나님만 최고로 생각했다. 평소 때나 전쟁 때나 항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면서 <시편 7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히 수치를 당하

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친하다고 말씀해 주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 놓은 것이다.

10. <풀어 준다는 말>은 ‘원상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이다. 문제를 풀어 주듯이, 얽힌 것을 풀어 주듯이, 근육통을 풀어 주듯이 풀어 줘야 된다. 그래야, 죽었던 나사로같이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11.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매고 푸는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풀어 달라고 고백했다. <시편 71편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풀어 주시며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풀어 주셨다.

12. 다윗은 <시편 71편 3절>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전쟁터에서 화살이 날아올 때 최고의 방패는 ‘바위, 반석’이다. 또 홍수에도 꿈쩍하지 않는 것이 ‘반석’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웅장하고 완전한 반석’으로 봤다.

13. 반석은 ‘변함’이 없고 튼튼하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상징하는 반석으로 쌓았다. 쌓아놓은 바위와 돌들을 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신앙의 영웅들이 생각난다.

14. 반석은 ‘보물’이다. 지난주에도 성령님이 멋진 반석작품을 주셔서 일부 묻힌 것을 캐냈다. 그 반석이 하나님과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밤참을 먹어가면서 밤이 깊은지도 모르게 자갈에 묻힌 바위를 잘 보이게 해 놓았다.

15.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말고, 피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다. 사람도 부담이 되면 피한다. 이익이 되면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겠사오니,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피하지 마시고, 나를 피하지 말고 대해 주옵소서. 나를 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16. 하나님은 애원해야, 풀어 주신다.

17. 주께 애원해야, 풀어 주신다. 지난주에 선생이 키우던 화매가 날아갔는데, 관리자가 온종일 하나님과 성령님께 울고 애원하며 찾았지만 못 잡았다. 결국 주께 애원하고, 책망받은 후에 2시간 동안 쫓아다니다가 다시 잡았다. 주께 울며 애원하여 풀어 주신 것이다.

18. 다윗은 불의한 자와 피해를 주는 자와 악인의 손에서 피하게 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기도를 했다. - 모두 다윗같이 ‘하나님과 주’를 반석으로 보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주께 피해야 풀어 주신다.

19. 다윗같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풀어 주신다.

20.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반석’이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시대 보낸 주를 반석으로 보고, 희망으로 애원하며 적극적으로 대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반석이 되어 주신다.

21. 주는 다윗 같은 자다. 모두 주와 일체 되어 다윗같이 살아야, 주가 반석이 되어 풀어 준다. 다윗같이 애원하고 매달려야, 풀어 준다. 풀어 주어, 죽었던 나사로같이 자유롭게 다니게 한다.

22.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반석으로 삼고 진실로 애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진실로 애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매인 문제를 풀어 주신다.

23.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신앙에 얽힌 마음들을 풀어 주어라.” 하셨다.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사명을 주는 것도 좋지만, 마음을 풀어 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반석같이 믿고 산다.

24. 말씀으로 풀어 줘야 된다. 욕도, 영도, 마음도, 각종 어려운 문제도, 오해된 것도 말씀으로 풀어 줘야 된다. 예수님은 구약의 문제를 신약 말씀으로 풀어 줬다. 욕도 영도 신약권으로 풀어 줬다.

25. 말씀으로 풀어 줘야 되고, 심정을 알아주며 풀어 줘야 된다.

26. 병과 각종 문제에서 풀어 줘야 된다. 또 형제들끼리 사명자들끼리 서로 맺힌 것을 풀어 줘야, 근본 문제가 풀린다. 서로 풀어 주어 나사로같이 자유롭게 살게 해 줘야 된다.

27. 다윗이 하나님의 관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했듯이, 주를 반석같이 믿고 인정해야 된다. 애원과 진실함으로 우러러 보며 대해야 되고, 간구해야 된다. 그같이 하라고 '다윗의 신앙관'을 말씀해 주었다.

28. 주는 자유된 몸이다. 주를 자기 생각으로 묶고, 풀어 주지 않은 자는 자기 괴로움이 크다. 반석에 부딪히면, 큰 해가 된다. ◎ 풀림을 받으려면, 다윗같이 주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모두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자를 풀어 주신다.

2.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그 마음도, 문제도 풀어 주신다.

3.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시대 보낸 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로 따르는 자들의 상한 마음과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과 희망하는 것들을 풀어 이루게 해 주신다.

4.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악인들의 울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피하게도 해 주시고, 악평자들을 심판하여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5.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의인들을 괴롭히고,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는 불의한 자들을 그 보낸 자의 말씀으로 매일 심판하신다.

6.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들이 풀어 주지 못하는 고통에서 풀어 주신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만 의지하여라.

7. 때가 되면 풀어 주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끝까지 반석같이 의지하여라.

8.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기암절벽의 바위 같고, 웅장한 바위 같아서 홍수가 나도 튼튼하고, 물에 씻겨 수마되어 더욱 아름답다.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만 의지하여라.

9. 지난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와 함께 네게 행하신 일들, 풀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현재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불만과 걱정 없이 희망으로 기뻐하며 살게 된다.

10.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만이 전능하시니 능히 풀어 주신다. 못할 것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다.

11. 삼위일체께 매일 매시간 감사하고 사랑하고 대화하며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매일 영육이 휴거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형통한다.

12. 늘 삼위일체와 주가 함께하도록 살아라. 그래야 네 삶에 삼위와 주가 늘 함께하여 살게 된다.

13. 사람들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안 된 것을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쉽게 해 주신다. 증거하며 행해야, 함

깨하여 풀어 주신다.

14. 오직 삼위께 주의 이름으로 피하여라. 크고 큰 홍수 때 높은 반석 위에 절대 의지하고 피하듯이, 삼위와 주께 피하여라.

15. 삼위와 주가 해주신 것을 절대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또 문제들을 풀어 주신다. “자기가 했다.” 혹은 “누가 해 줬다.”라고 생각하면 전능자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안 풀어 주시고, 계속 고통을 겪게 하신다.

16. 주를 떠나 사는 자들은 삼위도 주도 계속 묶고, 매어 버리신다. 곧 될 것 같아도 안 된다.

17. 주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영원한 줄로 묶고, 매어 놓고, 풀어 주지 않는다. 사망도 사탄도 매어 놓고 놓아주지 않는다.

18. 매인 것을 풀어 주었는데 순간만 인사치레로 대하고 말면, 다음에는 계획적으로 풀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이시다.

19. 풀어 준 것을 증거하여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삼위도 주도 전해 주어 믿게 하여라.

20. 사람에게 낙심했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있으니 절대 삼위와 주께 피하고, 간구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행해야 풀어 주신다.

21.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매일 주를 통해 풀어 주시지만, 주와 일체 되지 않으면 각종으로 매인 끈들을 풀어 주지 않으신다.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새로 구입한 곳에서 숨은 작품 보물과 각종 바위를 찾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자신 속에 숨은 깊은 보물들을 찾아야 된다. 찾는 대로 행하며 쓰니, 더욱 축복받고 살게 된다.

2. 산을 사면, 그곳에 각종 귀한 것들이 들어있다. 찾아서 귀하게 쓰니, 얻을 것이 많아 유익이고 보람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도 그와 같이 찾을수록 깊은 것이 많다.

3. 과학세계도 종교세계도 의학세계도 깊은 이상적인 것을 찾아낼수록 얻게 되고 유익이고 보람이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도 찾아낼 것이 많다. 찾아내어 더 높은 차원으로 믿고 행해야, 더 큰 표적을 이루고, 사랑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며 살게 된다.

4. 월명동 이상세계를 만들고 개발할 때도 더 이상적인 것들을 찾아내어 아름답고 신비하게 만들어 놓았다. 육에 속한 것도 그러하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속의 더 깊고 이상적인 것을 찾아 행하며 살아야 된다.

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역시 반석, 바위와 같다. 월명동의 낙타바위, 성자바위, 큰바위얼굴바위, 자화상형상바위를 찾아내어 개발하여 살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 속에 묻힌 것들을 찾아내어 행하면서 살아야 더 이상과 보람과 기쁨이다.

6. 더 찾지 않으면, 더 이상적인 것은 얻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도 고하여라. 그래야 성령이 감동을 주어 찾게 해 주신다.

7.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찾으니, 더 다른 차원의 새것을 얻게 된다.

8. 산과 계곡과 땅을 가진 주인이라도 바위, 나무, 계곡 등 각종 것을 귀하게 보지 않는 자는 값없이 쓰고 끝난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사서 10배, 100배 귀하게 개발하여 쓰게 된다.

9. 사람도 마찬가지다. 귀한 것을 개성대로 찾아서 개발하여 쓰는 자는 10배, 100배 더 귀하게 쓴다. 자기에게도 찾고, 섭리인에게도 찾아 귀하게 써라.

10. 무한하게 가지고 있어도 지혜와 지식이 없어 못 찾는다. 만물도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찾고 쓰는 자의 것이다.

11. 만물 속에 귀한 것들이 많듯이, 사람마다 귀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 지식과 지혜로 자기에게도 형제에게도 찾아야 된다.

12. 말씀도 귀한 보화의 말씀을 찾듯이 찾아야, 더 새로운 말씀을 얻게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우리의 반석이시다. 각종 보물들을 찾듯이 찾아라. 그래야 땅을 산 보람이 있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믿는 보람과 기쁨과 사랑이 있다.

14. 월명동도 각종 구상을 받고 보물들을 찾지 않았으면, 귀한 걸작품이 없었을 것이다. 산과 바위와 물과 나무들과 건물들이 걸작품들이다.

15. 찾아야, 육계의 것도 신앙세계의 것도 피난처가 되고 축복이 된다.

16. 찾으면, 육도 영도 기뻐 즐기며 천 년 역사 동안 더 좋은 사랑 휴거를 이루며 살게 된다.

17. 어제도 사 놓은 산에서 더 좋은 바위 장소를 찾았다. 안 찾았으면 눈으로 멀리 보고, “보이는 대로겠지.” 했을 것이다. 바짝 안 가봤으면, 그렇게 좋은 앉고 놀 곳이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침녕쿨을 걷고, 잡초와 낙엽을 제거하니, 30~50명이 앉아서 놓고, 김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사연을 나누며 이야기할 곳이 있었다. 이를 깨닫고 오늘 잠언을 쓰게 됐다. 금주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반석이시다.’ 하시어 더욱 지혜와 지식과 부지런함을 동원하며 찾았다. 킁킁.사람들 속의 반석은 견고한 믿음과 사랑과 진리들이다. 얼마나 반석같이 강하게 믿고 행하며 따르느냐다. 그것들이 그 사람의 보물, 반석, 성자바위, 낙타바위, 큰바위얼굴바위와 같다. 저마다 보물과 반석이 있도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라. 기뻐 좋아하니, 성령이 늘 주신다.

18. 받은 것을 가지고 호들갑 떨며 놀라고, 감동받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같이 주인이 되고 신부가 되어 써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도 자꾸 귀한 것들을 주신다. 새벽 잠언도 성령께 미치게 좋아하고 기뻐하며 찾으니, 이같이 많이 주신다. 너희도 기뻐 받아야 자기 것이 된다.

19. 코로나 기간에 병들까 봐 코로 숨을 안 쉬려고 피하는 고통만 받지 말고, 더 회심하고, 하나님이 시대에 행하심을 불신한 것과 반대한 것을 깨닫고 행해야 사라지게 하신다. 행하고 사는 자는 각종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20.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기간이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받은 것이 있으니, 감사하는 것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께 받지 않은 자가 없다.

3. 습관이 든 자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4. 생활도 마음도 습관이 들지 않은 자는 특별할 때만 가끔 감사한다.

5. 매일 매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감사에 살아 부활된 자다.
6. 감사를 잊으면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얻고, 받아도 기뻐하지 못한다.
7. 좋은 것도 생각할수록 좋고 기쁜 것이다.
8. 받은 것이나 얻은 것을 두고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지 겪은 것을 생각해 보며 써야 기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삶이 된다.
9. 사람이 누구나 희망한 것을 얻으려고 애간장 태울 때는 얻기만 하면, 준 자에게 평생 동안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서도 곧 잊고 안 한다. 그러니, 받고 얻어도 희망이 곧 사라지고, 받은 보람도 없이 살게 된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되어 살아야, 감사 감격하며 감사의 생각이 늘 사라지지 않고 살게 된다. 귀한 것이 무엇이든지 잊으면 기쁘지 않듯이, 감사도 잊어버리면 기쁨이 없다.
11. 진정 감사해야 진정 그 일로 인하여 기쁘고, 그 위의 단계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주시어 받고 살게 된다.
12. <주>를 받은 것을 감사해라. <사랑>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잊지 말고 살아야, 그 일로 계속해서 형통하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1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그냥 쓰기만 하면, 빚지고 사는 자다.
14.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받은 것을 뺏기고 잃게 된다.
15. 감사하고,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그로 인하여 다른 감사할 것들을 또 얻게 된다.
16. 지금 받은 것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됐다. 해결이 안 되어 얻지 못했다면, 어떤 처지였을지 생각해 보아라. 받지 못했을 때보다 100배, 1000배 좋아진 것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분명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신 것이다.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제때 감사다.
2. 받은 것을 다 쓸 때까지 감사다.
3. 받은 것으로 인해 누리는 대로, 쓰는 대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4. 사람의 심리가 처음에 바라고 몸부림칠 때는 원하는 것이 이뤄지기만 하면 죽도록 사랑하고 감격하며 살겠다고 해놓고, 후에 가서는 점점 잊고 살아간다.
5. 받고 이뤄졌으면, 평생 감사하면서 귀하게 쓰고 기뻐하고 좋아하며 살아가야 된다.
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아니고서는 아예 못 해 주는 불가능한 일들을 해줬건만, 그 가치도 귀함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니 그 귀한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어도 얼마 못 가서 그 가치도 감사도 영광도 잊고 살아간다.
7. 받은 것을 귀하게 써야, 느낀다. 그래야 기쁨도 식지 않으니, 늘 감사 감격하게 된다.

8. 주신 자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뇌 자체가 영향을 받아서 그쪽으로 더 기뻐하게 되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매일 귀하게 쓰게 된다.
9.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내가 받은 것을 못 얻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라.
10. 받은 때와 받지 못한 때가 그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계산도 해보고, 지난날을 생각하며 깨달아라. 이는 자기 책임이다. 그래야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그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11.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것을 준 자도 있다.
12.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사명도 빼앗아서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고, 물건도 생명도 운명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기울어진다.
13. 기도해야 온전한 정신으로 영계나 혼계를 보고 대하니, 받은 것을 귀하게 깨닫고 쓰게 된다.
14. 삼위와 주와 함께 써야, 귀하고 중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쓰게 되고, 그같이 만들게 된다.
15. 받은 것을 그냥 쓰지 말고, 주신 자와 함께 개발하여 더 귀한 것을 찾고, 더 이상적으로 만들어라.
16. 어떤 것은 받은 것을 더 귀하게 만들면서 10배, 100배 더 빛이 나게 된다. 사람도 만물도 그러하다.
17. 월명동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드니 10배, 100배, 1000배 귀한 곳이 되었고, 그만큼 더 우러러보는 곳이 되었다.

<2020년 12월 13일 주일 잠언>

1. <그동안 기도하고 원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잊지 말고 항상 영광을 돌리며 써야 된다. 만일 안 해주셨으면,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낙심도 하며 살았을 것이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물질>도, <신앙>도 도와 오셨다. 어떤 물질도, 생명들도 '미리' 주심으로 때가 지나기 전에 얻게 하셨다.
3.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것을 받으려면, 감동시켜 주실 때 바로 해야 된다. 성령의 감동대로 제때 못하면, 주시는 축복도 못 받고, 엄청난 손해가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4. 자기 기대 대로 안 됐어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
5. 하나님의 뜻대로 받고, 얻고, 누려야 된다. 사람의 뜻대로 받고 누려봤자 육에서 끝난다.
6.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것들이 그렇게도 귀하다. 천 년 동안이나 두고 자랑할 것들임을 깨달아야 된다.
7.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긍정적으로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8. 감사와 영광을 쉬지 않고 드려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쉬지 않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9. 하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셨다.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듯이, 섭리사를 해하는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깨끗이 처리해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민족과 세계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10. 저마다 삼위일체께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과 사랑으로 살기를 더욱 다짐하며 변함없이 살아야 된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물>도 <사람>도 다 귀하고, 가치 있다. 그 얼마나 귀하게,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 귀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신비한 것도 제대로 사용하게 되고, 행복도 더 누리고 산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귀하고 가치 있을지라도, 사람마다 그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믿느냐에 따라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산다.

2.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도 <인생들>도 얼마나 귀하고, 중하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는지 배우고 깨닫고 살지 않으면, 보통으로만 보고 산다. 그러므로 감사함도 기쁨도 없이 살게 된다.

3. 만물의 존재물도 각 사람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중한지 깨닫고 알아야, 귀하게 여기며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살게 된다.

4. 똑같은 만물을 보아도 어떤 자는 그 존재물의 가치를 알고 아주 귀하고 중하게 여기며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닦도록, 빛이 나도록 쓴다. 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며 쓴다.

5. 나무나 돌도 사람들이 같이 보고 살아도, 어떤 자는 귀하고 중하게 보고 갖은 수고를 하고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자기 것으로 삼아서 귀히 쓰며 기뻐하며 산다.

6.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살아도 귀하게 보고 사는 자도 있고, 별 가치를 모르고 보통으로만 대하며 사는 자도 있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와 중함을 모르기 때문이고, 예술성의 눈을 조금만 떴기 때문이다.

7. 사람들은 그 면에 눈이 어두워서 모르다가 알게 될 때, 그제야 귀하게 생각하고 찾으며 구한다. (집, 부동산, 돌, 나무 등)

8.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한 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환경을 사서 차지하고 살아 왔다.

9. 첨단 예술에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은 수석이나 돌이나 나무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몰라서 수십억짜리를 베고, 깨부수고, 헐값에 팔기도 하고, 다니면서 늘 보아도 보통으로만 보고 산다.

10. 사람도 ‘겉’만 보지 말고 ‘감춰져 있는 속’을 찾아보고 쓰면, 비싼 돌이나 나무나 환경 같은 자들이 많다.

11. 쓰는 것도, 가진 것도, 알아야 이를 주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고 좋아하며 쓰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12. 사람이 만든 것은 값이 수십억씩 나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그 값을 수십억, 수백억으로 매길 수 없다.

13. 무조건 감사하기보다 왜, 어떤 것을 해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더욱 근본적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14. 자기 차원대로 감사하여라.

15. 자기 개성대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라.

16. 감사와 영광은 그때, 받았을 때 돌리지 않으면 생각에서 잊게 되어 못 돌린다.

17. 쓸 때마다 주신 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18. 노래도 늘 배우고 하지 않으면 잘 못 하듯이, 감사와 영광도 범사에 하지 않으면 발달되지 않아서 못 하게 된다.
19. 무엇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라.
20.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면서 성령과 같이 살려면, 늘 감사하며 사는 '감사 덩어리'가 돼야 한다.
21.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신 자를 증거하며, 그와 같이 써야 된다.
22. 감사하며 영광 돌릴 것을 보물을 찾듯이 찾아내어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려라.
23. 하나님이 시대 사명을 하라고 보낸 주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극히 괴롭게 하여 심판하신다.
24.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은 개인이나 민족들은 지금도 병과 죽음으로 괴롭게 하여 심판하고 계신다.
25. 하나님과 주를 괴롭게 한 자들은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신다.
26.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신다.
27. 혀를 제 맘대로 놀리는 자들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그 행위대로 대하며 갚아 주신다.
28. 지금도 선악의 행위가 자기를 대한다.
29.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주도 사람들도 마음이 상해서 또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30. 마음과 행실로 좋아 기뻐하고 사랑하며, 주신 자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31. 하나님과 성령님은 직접 주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 하신다. 이를 깨닫고 근본자 삼위일체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만일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영원한 희망은 사라졌을 것이다.
2. 메시아는 사람의 영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도록 인도해 준다.
3.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확신하며 믿게 해 주지 못한다.
4. 메시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배우고, 그 나라를 보고, 진리로 확신하도록 온전히 가르쳐 주기에 그만이 반석같이 행한다.
5. 역사를 두고 볼 때,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그와 일체 되어 자신을 나타내시기에, 확실하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다.
6. 메시아의 몸은 보이는 하나님의 몸이다. 고로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지 못한다.

7. 메시아는 보고, 듣고, 알기에, 흔들림이 없다.
8. 사람은 한계가 있다. 영에 대한 것을 아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영원한 길로 구원하여 인도하지 못한다.
9. 메시아는 절대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임하여 행하신다. 그를 믿고, 그와 일체 돼야, 흔들림이 없게 된다.
10. 하나님은 세상에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보내시어, 그를 통해 그 시대에 목적하신 뜻을 이루신다.
11.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각각 그 시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시대 구원자인 메시아를 보내신다.
12. 메시아가 아니면, 구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풀어주고, 새 시대의 뜻을 펴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 주지 못한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녕코 이룬다.
13. 메시아를 알든지 모르든지 그를 악평하고 괴롭게 고통을 주며 불신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육신의 몸을 그리 대한 연고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통을 겪게도 하시고, 괴롭게 하시어 굴복하게 하신다.
14.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듯이,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에게 드리며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5. 우리 섭리인들은 두 가지 영광을 돌려야 된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도, 이 두 가지를 삼위일체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
16.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맞은 자가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죄가 된다.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들이 많고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모르고 사는 자가 많고도 많다.
2.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신 메시아를 믿어도, 그가 자기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일부만 알고 사는 자가 너무도 많다.
3. 자기가 평생 해도 못 하는 것을 메시아는 순간 해 준다. 그가 그만큼 능력 있고, 귀하고, 중하다.
4. 메시아, 주가 얼마나 귀하고 중한지 저마다 절대 믿고, 배우고, 깨닫고, 그와 함께 살아 보아야 그만큼, 그 수준만큼 알고, 얻게 된다.
5. 사람이 이론으로만 100% 알아도 일부 아는 것이다. 배우고, 깨닫고, 얻고, 겪고, 쓰면서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6. 이 세상의 역사를 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 권세와 명예를 가진 훌륭한 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과 권세와 진리를 주어 자기 뜻을 이루게 한 자', 곧 '인류를 구원하라고 세상에 보낸 메시아'다.
7. 메시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중한 자인지, 얼마나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인지 세상은 잘 모른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들도 그러하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일평생의 권세와 능력과 명예를 모두

나타내지 못했다. 그로 인해 2000년간 자신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쓰고 나타나서 행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행한 것까지 모두 알아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명예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세상 왕들이 크다. 재벌가가 크다.” 하면서 어느 누가 크다고 해도, 메시아이신 주 그리스도 앞에는 아주 작다.

8.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세와 능력과 사랑 모두가 세상 어떤 자보다 크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어 2000년 동안 그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구원해 오셨다. 지금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이 그 욕이 되어 행하게 하신다.

9.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절대신 삼위일체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라. 그러면서 이 시대에 다시 구원자를 보내 주시어 자신을 신부 삼고, 황금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감사와 영광과 사랑을 최고로 돌려 드리자.

10. 구원자,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최고로 큰 자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를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그 대가로 영광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

11. 하나님은 ‘환경’도 ‘만물의 존재물’도 귀하고 중하게 알고 대하며 사는 자가 그것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신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행할 때마다 선인지 불의인지 생각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행해야 된다.

2. 하나님은 천법과 인법대로 모두 행한 대로 갚아 주셨기에, 영혼이 지옥으로도 가고 천국으로도 가서 살고 있다.

3.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것은 더이상 없는 최고 공의의 법이고, 더이상 없는 사랑이자 의로운 존재자의 행하심이다.

4. 사람들은 미약해서 혹은 거짓돼서 행한 대로 갚아 주지 못한다.

5.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여 제 생각대로 악한 대로 갚아 주고 억울하게도 갚아 준다.

6. 모두 자기에게 행한 대로 공의롭게, 의롭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갚아 주어라.

7. 사람은 못해도, 천하에 어떤 신은 못해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지구 세상에서 행한 대로 판단하시어 갚아 주지 않은 자가 없다. 육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 행한 대로 갚아 주셨다.

8.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지 않았으면, 세상의 사람도 만물도 존재하지 못했다.

9.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 주도 그 행한 대로 갚아 준 것이 최고 순리다.

10.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믿어야, 행한 대로 선의 것을 더욱 받고 누린다.

11. 사람은 애인도 사랑하는 자도 능력이 없어서 행한 대로 갚아 주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와 같이 갚아 주신다.

12.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열심히, 미련도 없이 선을 많이 행하여라.

13. 때가 되면 행한 대로 받으니, 선악 간에 스스로 조심하며 분별하며 행하여라.

14.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당하고 나서 억울하다고 탄식하지 말고, 희망으로 행하고 걱정도 말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15.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분노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16.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니, 절대 믿고, 의와 행할 일을 더 많이 행하여라.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끼리 서로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말씀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행한 대로 갚아 준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

2. 만물이나 사람들이나 조건 반사, 즉 조건에 의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존재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행하는 대로 상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3. 사람의 지체들도, 뇌신경과 각종 신경도 대하고 건드리는 대로 생각과 같이 느끼고 반응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사람을 중심한 동물세계와 식물세계, 모든 만물의 존재세계는 대하는 대로 조건 반사 법칙에 의한 반응을 나타낸다. 고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누구에게나 자신을 대하는 대로 반응을 나타내고, 대하신다.

4. 전능하신 창조주 삼위일체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그 행한 대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삼위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으면, 그 행한 대로 대해 주셨다.

5.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불의하게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다. 고로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정한 때까지 그 쏟아지는 진노를 받는다.

6.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나님도 괴롭게 한 것을 용서하시고 분노와 화를 돌이키신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성경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7.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내가 감히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냐. 했으면 사람을 괴롭게 했지.” 한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의나 선을 행함이 곧 하나님과 주께 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도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라고 하셨다.

8.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면서도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주와 같이 사랑하고 산 자들에게는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무지하고 미련하여 모르는 자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때도 삼위가 함께 해 주시고, 이긴 후에도 여름철의 장맛비같이, 겨울철의 눈같이 축복을 퍼부어 주신다.

9. 심판 날에 의인들에게는 의로 갚아 주시고, 악인들과 무지하게 행한 자들에게는 삼위가 원하시는 대로, 또 의인들이 원하는 대로 갚아 주셨다.

10. 악평자들과 불의하고 미련한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행한 대로 축복 받는 것을 보고 불법을 행한다. 그들은 죄를 짓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시대의 뜻을 펴는 자들의 행함을 보고 이단의 행위라고 한다.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심판 날에 누가 심판을 받는지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여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해 주신다.

11. 예수님 때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불신하고 외면하니, 메시아 곧 구원자가 구원을 못 해주어 괴로움 속에 살았다. 그런 중에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보고 “죄인이다. 이단이다.” 했다. 심판 날에 심판을 받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보낸 자를 괴롭게 한 자들이었다. 어느 시대도, 이 시대도 그러하다. 예레미야 10장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와 심판 날이 되면, 내게나 내게 속한 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괴롭게 하여 깨우쳐 준다.”라고 하셨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그 고통은 전같이 쏘는 고통 같다.”라고 했다. 몸도 느끼고, 정신도 신경도 쓰이고 느낀다고 하셨다. 이 시대도 모두 코로나로 인해 신경 쓰고, 두려움과 괴로움을 느끼고, 받고 있다. 개

인과 가정과 민족적으로 괴로운 삶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한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까지 심판을 행하신다.

12. 사탄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악과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이 빠짐없이 심판해 주셔야, 의인들이 살아난다. 하나님도 주도 그들을 그냥 두면, 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다.

13.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가는데 상대편 적들이 막고 싸우니, 그냥 두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게 되기에 악과 불의한 자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

14.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이 쓰고 행하시는 자들이라고 믿고 친하게 지내고 돕겠다고 한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심판하지 않으시고, 같이 축복을 주어 살게 하셨다.

15.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모으고 헤치지 않는 족속들은 다 패하고, 멸함을 받았다. 어느 시대든지 개인과 민족과 세계가 그러하다.

16. 선을 행하는 자신들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처음부터 알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펴는 자들을 괴롭히며 “악하다. 이단이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 때가 돼서야 괴롭게 심판을 받고 깨닫고 알기도 하고, 심판을 받고도 모르기도 한다. 또 심판에 처해 살면서 그때 자기가 괴롭게 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었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심판하신다. 모두 선도 악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더 알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100% 펴게 하기 위해서다.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부지런히 악착같이 하고 나니, 월명동에 눈이 10cm나 쌓였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모든 자들이 행한 대로 끝까지 선악 간에 갇아 주셨으니,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항상 변하지 말고 살아라.

2. 모두 확인하나 마나 그들도, 이들도, 너도 행한 대로 갇아 주셨으니, 서운함도 의심함도 궁금함도 없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 감사하고 사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3.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는 네가 행한 대로 갇아 주셨고, 모든 자들이 행한 대로 갇아 주셨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서 너와 모든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갇아 주셨듯이, 너도 모든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갇아 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도 너와 온 세상에 행하신 대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갇아 드려야 된다.

4.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께도 그 행하심대로 갇아 드리고, 모든 자들에게도 미루지 말고 사랑으로, 공의롭게 갇아 줘야 된다.

5. 자기에게 해를 주며 악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원수를 사랑하며 의로움으로 행해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롭게 그 행위대로 대해 주신다.

6. 행한 대로 갇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상대도 삶의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7. 행한 대로 갇아 주는 것은 ‘돈을 줬으니, 그에 해당되는 물건을 줘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께도 그 행하심대로 갇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행한 대로 갇아 주시도록 우리도 선하게 행해야 된다.

8.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갇아 주셨다. 너무 커서 담대해야 받게 된다.

9.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주와 함께 365일 동안 개인과 민족과 세계의 선한 자들과 악한 자들,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모두 그 행한 대로 선악 간에 갚아 주셨다.

10. 하나님과 성령님은 섭리사 천 년 동안 역사를 펴면서 쓰라고 생명도 주시고, 보화도 주시고, 예술품도 특히 많이 주셨다. 새로운 가나안 복지 이상세계 땅과 건물들과 아름다운 장소들이다.

11. 하나님과 성령님을 극히 사랑해 드리니, 우리에게 또한 사랑으로 갚아 주셨다.

12. 갚아 주신 것을 귀하게 관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와 같이 빛나게 쓰며 증거하고,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13. 얼마나 값있고 귀한 것들로 갚아 주셨는지, 받은 것을 연구하며 배우고 알아야 된다. 그래야 좋아서 기뻐한다. 그로 인해 누리고, 증거하고, 주신 전능자 삼위를 더 우러러보며 섬긴다.

14. 모르면,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보물인데도 보통으로 본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사연도 정말 오묘하고, 받은 것도 신기하고, 귀하고, 중하고, 큰 것들이다. 귀하게 알고 써야, 더 귀하게 누리며 쓰게 된다.

15. 귀한 것을 절실히 깨닫고 쓰는 것이 10대 뉴스 중 하나다. 같은 것이라도 ‘아는 자’는 귀하게 쓰며 살고, ‘모르는 자’는 보통으로 대하며 보람 없이 산다.

16. 메시아는 귀한 것을 아니, 그 행한 대로, 대한 대로 귀한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

<2021년 1월 3일 주일 잠언>

1. 2021년 섭리사의 표어는‘영육 새롭게’다. 이는 우리들이 만든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획이 있으시어, 그 구상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멋있게 펴려고 주신 표어다.

2. <마음>도 <몸>도 <혼>도 <영>도 새롭게 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시대 신부로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다.

3. 사람들은 저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좋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더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4. 항상 더 좋게 행하고, 더 새로운 희망을 이루며 살아야 더 기쁘고, 더 보람 있고, 더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진다.

5. 하나님도 성령님도 행하는 대로, 변화되는 대로 갚아 주신다.

6. <로마서 12장 1~2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간곡히 말씀했다.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라면, 평소에도 ‘그가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분별도 해야 된다.

7. 새롭게 하지 않고, 그저 그런 대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는 더 이상의 축복도, 이상적인 삶의 터전도 줄 수가 없다.

8. 2021년을 다른 말로 하면, ‘변화의 해’다. 모두 더 이상적으로 변화되어 행해야 된다.

9. 올해는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가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행하고, ‘지혜’도 더 받아서 세상

에 속한 것도 하늘에 속한 것도 분별하여 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마음>도 새롭게 변화돼야 하고, <행실>도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

10. <로마서 12장 3~4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에게에 말하노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고, 필요 없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했다. 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했다. 이는 “그리스도는 머리오, 따르는 자들은 지체다. 각 지체마다 개성대로 책임을 다하듯이, 사명들도 그러하다.”라는 말이다.

11.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는 못 한다. ‘능력’이 없어서 혼자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풍부하게, 완전하게도 못 한다. 그러므로 일을 나눠서 각자 개성대로, 특성대로, 존재하는 대로, 하나님과 주의 구상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머리삼고 행해야 된다.

12. 하나님과 성령님이 맡기신 일들은 수백 가지다. 그러므로 교역자도 각 부서의 지도자들도 사람들에게 골고루 일을 맡겨서 하게 해야 된다. 맡겼는데 잘 못 하면, 배워서 하게 해야 된다.

13. 사명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도 안 되고, 하던 일도 작년 같은 차원으로 반복하게 된다. 반복하는 삶은 ‘발전’도 없고,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14. 한 해 동안 ‘새롭게 변화되어 행하라.’라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생각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15. 선생도 10대 때 새롭게 하지 않았으면, 기성 신앙을 하면서 아쉽게 살았을 것이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 시대 성약 천 년 역사로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선생은 15세 때부터 기성 신앙인들을 본받지 않고, 더 새롭게 살겠다고 연구하고 노력했다. 나무를 하러 다니면서 인생의 삶을 뼈저리게 생각하며 남다르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생활이 가난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늘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싫고 고생돼서 ‘육도 영도 고생하지 않고 사는 길’을 찾고 다녔다. 결국 예수님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다. 그때부터 대둔산 용문골에서 기도하며 ‘이상적인 인생의 삶’을 찾고, 배우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어 그 말씀대로 바로 깨닫고 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34세 때, 고향을 떠나 서울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약역사 복음’을 전해 주기 시작했더니, 어느 새 역사가 점점 커져서 43년 만에 이 같은 섭리 세계를 이루게 됐다.

16. 선생은 어리더라도 새롭게 생각했고, 고생되더라도 끝까지 행했기 때문에 지금의 섭리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 모두 이러한 ‘주의 정신’을 받아서, 올해에는 <마음>도 <생각>도 새롭게 하여 행해야 된다.

17. 새롭게 하려면 ‘하나님의 새 시대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18.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차원을 높여가기에, 자꾸 새롭게 생각하면서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으로 살아야 보람 있게 살게 되고, 최고 이상적으로 얻게 된다.

19. 하나님은 ‘머리 되는 주’를 통해 먼저 행하시고, 지체들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 모두 주를 따라 새롭게 해야, 전능하신 시대 하나님의 행하심에 맞춰서 살게 된다.

20. 다윗 왕은 <시편 103편 5절>에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려고,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청춘으로 높이 나는 독수리같이 차원 높여 살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튼튼하고 담대하게 권위 있게 행하며 새롭게 살게 하신다.

21. 새롭게 해야, ‘시대 하나님의 개성의 신부’가 되어 왕같이 산다.

22. <에스겔 18장 31절>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

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 육도 영도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육도 영도 죽는다.

23.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펴셔도, 구시대 사람들은 새롭게 하지 않음으로 불신하고, 외면했다. 구약의 유대종교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도 새롭게 따르지 않다가, 그 영도 죽고 육도 사망권에서 죽은 삶을 살았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약 천 년 역사의 사명자’를 보내어 새로운 역사를 펴고 계셔도, 모르고 외면하고 불신하여 기다리던 역사를 못 맞은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영도 육도 사망권에서 죽은 신앙을 하며 살고 있다. 모두 새롭게 해야 된다.

24. <로마서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옛것, 곧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길 것이요,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은 시대가 지난 묵은 것으로 섬기고 살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신약인들이 구시대를 보고 한 말이다. 섭리사 신부들도 ‘주를 기다리는 구시대 신약권’에서 벗어나 새롭게 함으로 ‘성약역사 신부의 대상’이 되어 보람 있게 희망을 이루며 살고 있다.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새 시대 주’를 맞고 살고 있다. 섭리사 모두는 새롭게 함으로 새 역사를 맞고, 자녀에서 신부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으로 휴거를 이루고 살고 있다.

25. 새롭게 해야, ‘휴거의 차원’을 높인다.

<2021년 1월 17일 주일 잠언>

1.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만물과 사람의 때와 기간’을 절실하게 겪고 깨닫고 기록하게 하셨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했다. 사사건건마다 ‘때’가 있고, ‘기간’이 있다는 말이다.

2. <만물>도 <사람>도 ‘때’와 ‘기간’이 있다. 계절의 비유를 들어 말하면 ‘겨울이 오는 때’가 있고, ‘겨울의 기간’이 있다. 사람도 ‘태어나는 때’가 있고, ‘태어나서 사는 기간’이 있다.

3.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때>가 있고, ‘그 계절의 기간’이 있듯이, 사람도 <자기 때>가 있고, ‘자기 때의 기간’이 있다. 저마다 지난날을 살아오면서 겪은 사연들을 보면, ‘고생하는 때’가 있었고, 고생하는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잘 되는 때’가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뤘다.

4. 만사에 <때>가 있고, ‘그때의 기간’이 있다. ‘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다. 그때 못하면 영원히 못 하게 되기도 하고, 혹은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어렵게 하게 되기도 한다.

5. 자기 때가 있듯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에도 ‘기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기간’이다. 이때 못하면, 아무리 하고자 해도 여건이 안 돼서 못하게 된다.

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때>는 정해져 있다. 그 기간이 지나가면, ‘기회’를 놓치고 못 하게 된다. 하나님은 누가 못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 다시 때를 만들지 않으신다. 그때 못 했으면, 못 한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때’와 ‘기회’를 잡아야 된다.

7. <때를 지키는 자>가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던 꿈을 이루게 된다.

8. 하나님의 구원역사에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때>가 있고, ‘메시아가 활동하는 기간’, 즉 ‘구원의 기간’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지 못하면 못 한 것으로 끝난다. 신약 때도 ‘예수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시던 3년 반의 기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지 못한 자들은 그대로 끝나고 말았고, 후대에 복음을 들었어도 메시아를 못 보고 믿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보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다. 그 기회의 기간에 ‘하나님이 시대 구원자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던지, 듣고도 믿지 않고 만 자들은 그대로 끝나고 만다.

9. 살아가면서 게을러서든지, 몰라서든지, 준비를 안 해서든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든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때와 기회>를 놓치면 그대로 끝나고 만다.

10. 집을 사는 것도, 땅을 사는 것도, 교회를 사는 것도, 돌과 소나무를 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돈을 벌고 쓰는 것도,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말씀을 쓰고 전하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병을 고치고 수술하는 것도, 각종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도, 키가 크는 것도, 상대방에게 대접하는 것도 ? 모두 만사에 <때>가 있고, '그때의 기간'이 있다. 그때 꼭 해야 된다.

11.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으니, 그때 못하면 실패하고 후회하게 된다. 그러므로 <때>를 위해 준비했다가, 때가 오면 좋아서 전심을 다해 계획하고, 행해야 된다.

12. <때>가 지나면, 여건이 바뀌어서 '자료'가 없어진다. 예를 들면, 장마철에만 '흐르는 물'이 있고, 그때가 지나면 물이 말라서 없다.

13. 제때 하면, 모든 자료와 환경이 준비되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행여 여건이 안 좋아도 제때 행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도울 사람'을 보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자기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주신다.

14. <봄>이 오면, '봄의 환경'도 같이 오듯이, <때>가 오면 '때의 환경'도 같이 와서 진행된다. 그때 하면, 하나님과 성령님도 함께하시고, 천사도 돕고, 사탄도 물러가게 되고, 인(人)사탄도 악평자도 자기 때가 아니라서 주권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제때, 꼭 해야 된다.

15. <때>가 왔으면, 탄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때에 속한 일'에 집중해야 된다. 먹고, 입고, 자는 것도 중시하지 말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서 기어이 하고 말아야 된다.

16. 특히, 환난 때 사탄과 인(人)사탄과 악평자들이 반대하고 불신해서 힘들어도, <때>가 왔으면 행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

17. <때>는 우연같이 홀연히 온다.

18. <때>는 저마다 준비된 대로, 또 성장된 대로 온다. 자기가 성장된 대로 '결혼의 때'가 오듯이, 신앙도 지식도 육도 영도 성장돼야 '자기 때'가 온다.

19. 어서 영육이 커야 <때>가 와도 맞게 된다.

20. 성경 역사의 때를 보면, 구약의 때는 '4000년'이었고, 신약의 때는 '2000년'이었고, 성약의 때는 '1000년'이다. <구약·신약·성약 역사>는 '총 7000년'인데, 신구약 역사가 '6000년'이니, 성약역사는 '1000년'임을 알 수 있다.

21.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때'가 왔을 때, 기다리던 유대종교인들은 육적으로 생각하여 메시아를 맞지 못했다. <2000년 신약역사>가 끝나면 '성약 천 년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시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구원역사를 행하신다. <육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자기 주관과 자기 지식과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때'도 '주'도 알고 맞게 된다.

22. <때>를 한번 놓치면, 평생 안 오기도 하고, 행여 오더라도 1년, 3년, 7년, 21년, 40년, 70년 만에 온다. 그러면 때가 왔어도 그만큼 인생이 늙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시간이 적다.

23. <때를 놓친 자>는 <때를 지킨 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한다. 때를 지킨 자는 얻고, 때를 못 지킨 자는 다시 오는 때를 기다렸다가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24.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지난날 수많은 때를 잡고 행해 오셨기 때문에, ‘얻을 것’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오셨다. 우리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수많은 때를 지킴으로 ‘물질’도 ‘생명’도 얻었고, 또 관리했기 때문에 ‘현재 섭리역사’를 이루고서 살아가고 있다.

25. 올해는 <새롭게 하는 때, 이상세계를 이루는 때>다. 일 년 동안 매일 새롭게 함으로 매일 이상세계를 이뤄야 된다.

26. 올해는 <기회를 얻고 행하는 때>다. 때가 왔으니, 올해 모두 얻을 것을 얻어야 된다. - 이 말을 잊으면, 때를 놓치고 못 하게 된다.

27. 올해는 매일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창조 목적 휴거의 역사를 펴는 ‘승리의 대(大)역사의 해’다. 올해 주제대로 영육 새롭게 하여 이상세계를 극적으로 이루는 해다.

28.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때를 잘 잡고 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29.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다. ‘그때 받을 것’은 꼭 그때 받아야 된다.

30. 때마다 <기회>가 오면, ‘그에 속한 문제들’도 같이 온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심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은 단상의 말씀으로 깨닫고 속히 행하게 하여 얻게 하신다. 후에 보면, 하루만 늦었어도 못 하게 될 일들이 많았다.

31. 무지하여 <때>를 놓치면, 정말 뼈가 저리는 후회를 하게 된다.

32. <때>가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총동원해서 해야 된다.

33. <자기가 기다렸던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실천하는 것은 여건과 환경적으로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선생은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세상도 가정도 반대하는 자들도 쳐다보지 않고 뛰고 달렸다.

34. <기다리는 때>는 모두에게 온다. 준비했다가, 때를 잡아 지켜야 된다. 저마다 <자기 때>가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 때를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새롭게 함으로 매일 이상세계를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좋아도 말하지 말고, 나빠도 말하지 말아라.
2. 하나님 주관권에서 행하는 일은 자기만 알고, 자기만 행하기다.
3. 자기에겐 준 기쁨도 자기만 알고 사명을 하는 것이다.
4. 복음도 아무에게나 전하면, 오히려 전하는 자에게 해가 된다.
5. 하늘 앞에 받은 말도 전할 말이 있고, 자기만 알고 행해야 될 말도 있다.
6. 합당치 않은 말이나 행위는 오히려 자기에겐 해가 된다.
7. 언제나 합당한 말과 행위다.
8. 하나님은 온전한 때가 돼야 ‘시대 말씀’을 전하신다.
9. 때에 합당치 않은 말이나 행위를 하면, 사탄도 사람들도 듣고 해를 준다.

10. 제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기다.

11. 지금은 섭리사 모두 기도하는 때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일체 되고, 성령과 주와 일체 된다. 사람끼리도 대화함으로 생각이나 행위가 일체 되는 것과 같다.

12. 기도하면, 꿈이나 말씀이나 자연 계시로 보여 주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계시해 주신다.

13.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일체 된 삶을 사는 것이 최고 신앙의 삶이다.

14. 신앙생활을 잘해도 생활의 문제들이 있으므로 인해 고통과 걱정이 온다. 고로 시험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춰 살도록 깊은 회개를 하고, 자기를 만들도록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

15. 신앙이 차고 넘치는 자도 사탄의 유혹이나 악한 자의 유혹을 받게 되거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사망의 주관을 받게 된다.

16.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께 날마다 정해 놓고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하는 자도 기도를 안 하면 그릇된다.

17. 지금은 홀로 있으면서 자기를 더욱 온전히 만드는 때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깨끗이 되어 각종 유혹을 이기고, 자기 영과 혼과 육이 사망에 갇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봐야 된다. 태만하고, 게으르고, 안심하면, 사탄과 악에 속한 자들의 유혹과 말에 꺾여 그들과 같이 고통받게 된다.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이 사망으로 가게 된다.

18. 마음도 몸도 생각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살라는 올해의 계시다. 누구든지 그같이 살아야만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면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한다고 하셨다. 매일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는 이때다.

20. 하나님은 선악 간에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 괴롭게도 하시고, 기쁘게도 하시는 전능자의 행하심을 알고, 홀로 있어도 늘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시니, 이를 깨닫고 성령으로 행하여라.

21. 누구나 불의한 길로 가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그 사자들을 보내시어 1초도 쉬지 않고 성령과 막고 행하신다.

22. 자기가 온전하게 행했다고 한 것도 더 아는 자가 볼 때는 그릇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치 못한 것도 있다. 온전하도록 고쳐라.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

2. 섭리사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즉시 행하신다.

3. 기도하면, 기도한 것 한 가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풀어 주신다.

4. 민족과 세계의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5.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기도로 해결할 줄 모른다. 그러므로 기도로 해결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6. 사탄이 사람을 꾀고 유혹한다. 사탄을 멸하는 기도를 하여라.

7. 죄가 있으면 사탄이 오고, 그 욕신을 쓴다. 회개의 기도를 하여 사탄을 분립해라.

8. 자기의 죄 회개, 상대의 죄를 회개하여 사탄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라.

9. 형제를 미워하면, 사탄이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새벽, 주 말씀>

1. 세상에 있을 때 일생 동안 기도만 해 주며 살다간 자들은, 그 영이 천국 중에서도 '기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산다. 이들은 세상에 살 때 일생 동안 생명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민족과 세계의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것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함께하게 해 준 자들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생각'과 다르다.

3.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같이 행하는 것'이다.

4. 일을 시키는 감독과 같이 이야기를 하여 생각이 하나 되면, 그에 맞는 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마음과 일체 되어 삼위가 원하시는 생각대로 하게 된다.

5. <기도>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정신과 마음이 맑아지고, 욕신도 깨끗하게 된다.

6. 응답 없는 기도라도 계속하여라.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꿈으로나 만물로 늘 대답해 주신다. 오래 지속해서 기도하여라.

7. <말씀>은 사람이 살아갈 때 먹는 양식같이 절대 필요하고, <기도>는 사람이 살아갈 때 호흡하는 것같이 절대 필요하다. 또 매일 배설물을 배설하는 것만큼 필요하다. 고로 '매일 정기적인 기도'를 해야,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8. 절대적인 것은 절대 해야 된다.

9.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면, 누가 안 시켜도 매일 운동한다. 기도도 좋아하는 자는 매일 하게 된다.

10.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배워야 안다.

11.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아하며 기뻐했는데도 원하는 것이 안 됐었으나, '기도'를 하니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그러하다. <기도>해야 '줄 것'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된다.

12. 어느 때는 기도하기보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13.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응답을 안 하시고 단상에서 사명자나 사람을 통해 말씀해 주기도 하신다.

14. 간절하게, 꼭 사정을 이야기하며 간구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허락하신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그 태도를 보시고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고 감동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15.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모든 내용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재어보고 행하신다. 고로 '기도의 내용과 사연'이 충분해야 된다.
16. 평소에도 하나님과 성령님께 잘하다가 기도해야,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
17. <간절한 기도>는 천사가 기도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외식과 형식의 기도>는 아예 기도 그릇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18.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잘 들어 주신다.
19. 하나님은 육계와 영계를 절대적인 상대세계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육계에서의 인간 행위의 반응을 영계에서 그대로 보이신다.
20. 사람끼리도 대화를 안 하면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성령님과도 기도를 안 하면 멀어진다.
21. 하나님 앞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자기가 말을 하면,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22. 지구 세상 여기저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시대 복음을 전해줄 수도 없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고, 그들을 감동시켜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하자.
23. 만날 수도 없고, 말로도 안 통하는 처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행하신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께 기도하여라.
24.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깨달아라.
25. 자기 것도 이웃과 형제의 것도 민족의 것도 세계의 것도 모두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어 행하신다.
2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낮게 대해 주신다. 그러므로 통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높게만 생각하지 말고 대하여라.
27. 하나님은 인간이 수준이 아주 낮고, 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것을 아신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좋게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그에 합당하게 대해 주신다.
28. 하나님은 인간 각자에게 향한 목적이 있으시어 그 목적을 위해 버리지 않으신다. 이를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과 성령님께 몸도 마음도 맡기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야 된다. 사탄의 것이나 불신자의 것이 되면 절대 안 된다.
29.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의 존재자이시다.
30.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옥문을 열고 떨어질 때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며 기회를 주신다. 이를 깨닫고 마음도 몸도 불태워서 진정으로 대하여라.
31. 기도 후에, 마음속에 조용히 성령으로 감동되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전해준다.
32. 그동안 한다고 했어도 못 한 것이 정말 많아서 죄송하다고 깊이 기도하니, "네 마음 알았다." 하시기에, 이제 죽도록 하겠다고 진정한 마음으로 말하니, "나 여호와와 함께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이에 진정 감사하다고 하니, "나 여호와와 같이 하도록 진정으로 기도하고 행해라." 하셨다.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모두 나와 같이 행하도록 이 말을 전해준다.

33. 구원도 휴거도 귀하게 여기고, 매일 기뻐하며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 살도록 간구해라. 올해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라고 하셨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성령님이 각자 새롭게 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인간은 '육신'인고로 60% 밖에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행한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신령한 자기 혼'으로 보고, 느끼고, 행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도 제대로 보고 느낀다.
2. 하나님께 '말'을 하고, '의논'을 해야 하나님이 알고 행하신다.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하면, 자기 욕성으로 행하게 된다. 고로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화'를 먼저 해야 된다.
4.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기도로 간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후에 행해야 된다.
5.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하지 않으신 때에는 지상에 생명 역사를 펴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지상에 보낸 자와 대화하시게 됐을 때, 그제야 세상에 구원 역사를 행하셨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리도 중요하다.
6. 사랑하는 자들이 말을 안 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을 안 하신다. 고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진정 말을 해야 된다.
7.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말을 해야 통하듯이, 하나님께도 먼저 말을 해야 통한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대로 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기도로 말하는 것이다.
8.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같이 행한 일인데, 사탄과 그 육신들이 힐문한다고 하나님께 고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행한 일은 죄가 아니다. 네게 준 권한으로 말이 검이 되어 행하라." 하셨기에, 기도하며 간구했다.
9. 뼈가 어긋나면 아픈 고통이 오듯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 행하면 그로 인해 아픈 고통이 일어난다. 척추를 바로 잡아주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도 바로 잡고 가야, 고통 없는 역사를 편다.
10. 몸의 뼈를 잘못 맞추면 뼈가 비틀어지고 어긋나서 결국 불구자가 되듯이, 뼈와 같은 진리를 잘못 알고 그릇되게 전하며 비(非)진리로 행하면 '신앙의 불구자'가 된다.
11.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성령님의 마음도 '대화'와 '기도'를 해야 그 심정을 알게 된다.
12.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성령님의 마음도 알 수 없다. 말을 해야 신의 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니 알 수 있다.
13. 기도하니, 꿈에도 그 현상이 나타나서 깨끗한 곳이 보이고, 대적하며 힐문하는 자와 싸워 이기고 행했다.
14.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도 성령님도 빠지지 않고 기뻐하며 돕고 행하신다.
15. 기도하니,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와 섭리사에 즉시 행하시어 표가 나게 좋아지도록 하고 계신다.
16. 주도 기도를 진정 열심히 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자기 육신을 쓰고 행하심을 뜨겁게 느끼고, 그것이 눈에 보이듯이 느껴져 보인다.

17. 세상에서 최고 큰 영광인 휴거를 이루어 주셨으니, 휴거된 자들로서 ‘큰 정성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도리다.
18. 하나님은 우리를 휴거시키기 위해 ‘성경의 6000년 역사’를 펴 오셨고, 당세에 시대 보낸 자가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였고, 섭리역사를 37년 동안 기르신 후에 성자가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휴거시켜 주셨다. 휴거가 하나님이 지상에 퍼신 종교역사 가운데 가장 원하셨던 일임을 알고, 귀하고 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해야 된다.
19. 하나님과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 기뻐하며 ‘자기 문제’와 ‘섭리사의 문제’와 ‘가정과 민족과 세계의 문제’와 ‘코로나 문제’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간구하자. 기도해야, 그 조건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즉시 실행하신다.
20. 기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도 세상살이도 쉽고, 기쁘게 하게 된다.
21.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에스더, 이사야, 바티모섬의 사도 요한, 메시아 예수님같이 ‘심정을 알아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도 성령님도 심정이 통해서 와서 도우신다.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심정을 느끼고 깨닫는다.
2.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면, 그 뜻대로 살지 못한다.
3. <기도>하면, 자기 혼도 자기에 대해 깨닫고 욕을 따라 기도한다.
4. <기도>하면, 저마다 ‘할 일’을 깨닫는다.
5. <기도>하면, ‘자기 죄의 행실’을 고치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며 행하신다.
6. 모두 열심히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혼자 기도하며 고생길을 가지 않는다. 고생돼도 ‘기도의 생명길’을 가야 된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감동으로 행하신다.
7. <기도>하면, 육신은 힘들어도 혼과 영은 ‘힘’을 얻는다. 또 하나님이 사탄과 악한 자들을 직접 주관해 주신다.
8. 기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9.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표적>이다. 기도가 합당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행하신다.
10. 휴거되고 나서 그냥 태만하게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휴거가 점점 시들어 버리는 꽃같이 되고 만다. 저마다 <기도>로 ‘휴거된 영과 욕을 온전하게 관리하기’다. <기도>로 ‘시대 섭리사의 가치를 깨닫기’다.
11. 기도하고 난 후에 자기와 섭리사에 달라진 것들을 깨달아라.
12. 식음을 폐하고 기도한 자들은 응답을 받았고, 태만하게 기도한 자들은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하게 기도한다.
13.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14. <형식의 기도>는 ‘유대종교 바리새인들의 기도’다.
15.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빠지지 말고 모두 할 때 하자.

16. 기도할 때 중심을 세우지 않고 기도하면, 생명력이 없다.

17. 기도하면 된다. 그러므로 절대 믿고 기도하여라.

18. 기도 후에는 더 증거하고, 더 담대히 외쳐야 된다.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새벽, 주 말씀>

1. 여러 가지 존재물이 있어도, 의미 있고 사연 있는 것을 못 따라간다. 그림도 그러하고, 돌과 나무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2. <의미 있다는 말>에는 ‘사연이 있다는 뜻’이 있다. 그 사연은 주인공만 알기도 하고, 타인이라도 사연을 전해 듣고 믿으면 같이 공감하고 인정하게 된다.

3. 가령, 일주일 금식을 하고 그 사연을 담아 그린 그림과 그냥 평소에 좋아서 주제를 정해 놓고 그린 그림은 의미도 다르고, 그 가치도 다르다. 사연 있는 그림의 가치가 더 높다.

4. 자기가 당하고 겪은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5.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남긴 글이나 그림이나 돌이나 나무는 평소 남긴 것과는 의미도 다르고 가치도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고통을 받으면서 남긴 것들의 가치가 더 높고 높다.

6.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이나 ‘나무’나 ‘지역’이나 ‘땅’이나 ‘사람’은 그와 같아서 상징하게 되었으니, 그 가치가 하늘까지 닿는다.

7. <예수님의 상징>은 ‘성전’이요, ‘그를 전심으로 좇으며 환난과 핍박을 겪은 자들’이요, ‘신약인들’이다. 그들이 주의 몸이요, 주의 정신이요, 주의 마음들이며 주의 혼과 영들이다.

8. 이 시대를 좇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의 상징체’로서 그의 몸이요, 그의 정신과 마음이요, 그의 혼과 영이요, 그의 성전들이다.

9.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 되어 먹고 마시고, 영원하신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며 그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10.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을 보면, 한순간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 한다. 모두 해야 될 일이지만, ‘일의 순서’가 있다. 이때는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생각이 나서 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만 하되, ‘해야 될 일 중에서도 최고의 일 하나’만을 선택해서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면 된다.

11. 생각나는 많은 하고 싶은 것들 중에도 ‘육에 속한 일’이 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 혼과 영에 속한 일’이 있다. 절대 ‘하나님과 성령님과 자기 혼과 영에 속한 일’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최고의 행함’이 되고, ‘정상적이고 의로운 주 안의 행위’가 된다.

12. 비유컨대, 수석 예술품 100개가 있다고 하자. 모두 개성대로 좋지만, 최고로 좋은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최고로 좋은 것 하나를 취하는 것’이 나머지 99개를 얻는 것보다 가치도 있고, 실속도 있다. 최고 예술품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순간에 많은 하고픈 것들이 생각나지만, 그중에 ‘최고로 좋은 하나님께 속한 일’만 해야 된다. 그러한 자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요, 사탄과 인(人)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는 자다.

1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절대신’이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온전히 행해야, 그에게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자기 목적도 이루게 하신다.

14. 하나님과 성령님의 절대 뜻이 있는 자에게는 각종으로 채찍질을 하고 괴롭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향한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 시대의 뜻을 이루실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교와 교파를 세우실 때도 그러하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주’가 증거하고, 주는 ‘그를 믿고 따르며 구원받은 자들’이 증거해야 된다.

16. <증거 거리>는 ‘말씀’이요, ‘그가 행한 것들’이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와 함께하신 것들’이다.

17. 항상 악은 멀해지지만, 존재 과정에서는 선과 악이 싸워야 된다.

18. 하나님은 ‘사탄의 악’에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사람의 악과 죄의 행실’에는 돌이키는 기간을 주신다. 그 기간에 또다시 악을 행하면, 정한 날에 심판을 받고 끝난다.

19. 사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선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 악의 육체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들을 씹고 힐문하며 괴롭게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행위를 잠깐 보시다가, 결국 주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

20. 사탄의 육체가 되어 행하는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은, ‘그 육신’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선에 속한 세계’에 살게 해 주시고, ‘그 영’은 영계에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 주신다.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시다.

21. 이제 이 시대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계속 ‘영원한 휴거길’로 가야 된다. 뒤돌아볼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다. 시대의 때가 가서 이제 선과 악의 분리가 끝났다. 다른 미련을 두지도 말아라. 남은 유혹은 지옥으로 가는 사탄과 그 육체들의 악한 행위다.

22. 온전한 신앙이다. 신령한 기도다. 생명의 말씀이다. 주를 좇고, 믿고, 행하기다.